



유랜시아 책 / THE URANTIA BOOK

KOREAN / ENGLISH: USGNY[URKA]-KOR-000-2017-6 / UF-ENG-001-1955-20.1

The Korean text of this translation of **THE URANTIA BOOK** is

Copyrighted © and Published by:



This pdf-formatted document (kor01e) was designed, created, and
freely provided as a service by the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USGNY).
www.urantia.nyc

유랜시아 책

머 리 말

머 리 말

유란시아 책

001 ⇨

머 리 말

색 선

소개

제 I 장. 신(神)과 신성

제 II 장. 하느님

제 III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

제 IV 장. 우주 실체

제 V 장. 개인성 실체

제 VI 장. 에너지와 원형틀

제 VII 장. 최극존재

제 VIII 장. 칠중 하느님

제 IX 장. 궁극자 하느님

제 X 장. 절대자 하느님

제 XI 장. 세 절대자

제 XII 장. 삼위일체들

FOREWORD

SECTIONS

Introduction

I. Deity and Divinity

II. God

III.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V. Universe Reality

V. Personality Realities

VI. Energy and Pattern

VII. The Supreme Being

VIII. God the Sevenfold

IX. God the Ultimate

X. God the Absolute

XI. The Three Absolutes

XII. The Trinities

소개

유란시아—이는 너희 세계의 이름이니—이곳의 필사자 마음속에서는 하느님, 신성(神性), 신(神)과 같은 그러한 용어들의 의미에 관하여 큰 혼동이 존재한다. 인간 존재들은, 이들 수많은 호칭으로 지칭되는 것 때문에, 신성한 개인성(個人性)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혼동이 되고 그리고 불분명하다. 그토록 많은 관념화에서의 혼동과 연관된 이 개념적 빈곤 때문에, 나는 오르본톤의 진리 계시자 무리단이 유란시아의 영어라는 언어로 옮기도록 허락받은 이 글에서 앞으로 사용될, 특정 단어 상징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의미에 대한 해설로서, 이 머리말을 쓰도록 지도를 받아왔다.

우리가 조화우주 의식을 확대시키고 영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우리의 노력에서, 그 영역의 한정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받으면서, 확대된 개념과 앞선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극도로

INTRODUCTION

0:0.1 (1.1) IN THE MINDS of the mortals of Urantia — that being the name of your world — there exists great confusion respecting the meaning of such terms as God, divinity, and deity. Human beings are still more confused and uncertain about the relationships of the divine personalities designated by these numerous appellations. Because of this conceptual poverty associated with so much ideational confusion, I have been directed to formulate this introductory statement in explanation of the meanings which should be attached to certain word symbols as they may be hereinafter used in those papers which the Orvonton corps of truth revealers have been authorized to translate into the English language of Urantia.

0:0.2 (1.2)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present enlarged concepts and advanced truth, in our endeavor to expand cosmic consciousness and enhance spiritual perception, when we are restricted to the use of a circumscribed language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명령자는 우리가 영어의 단어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를 타이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부분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다소간 의미가 왜곡되는 일이 있더라도, 묘사되는 개념에 적용될 수 있는 술어가 영어에 전혀 없을 때에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도록 지시를 받아왔다.

우리는, 이 글을 정독하는 모든 필사자의 편에 서서, 이해를 촉진시키고 혼동을 방지하려는 희망으로, 이 맨 처음 머리말에서 신(神)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주적 실체에서의 사물, 의미, 그리고 가치들의 어떤 연관된 개념에 대한 정의에 적용되는, 수많은 영어 단어에 따라붙어야 할 의미의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와 한계를 서술하고 있는 이 머리말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발표문에서의 이들 용어들의 용법들을 미리 예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머리말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그러한 글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이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 파송된 오르본톤 위원회가 작성한, 우주들의 우주와 신(神)을 다루는 글들을 읽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용어를 정의하는 안내일 뿐이다.

너희의 세계, 유란시아는 네바돈 지역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민이 사는 많은 유사한 행성의 하나이다. 이 우주는, 유사한 창조계들과 서로 합하여, 오르본톤 초(超)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그곳의 수도인 우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는 내려왔다. 오르본톤은, 시작도-없고 끝도-없는 신성한 완전의 창조계—하보나라는 중앙우주—를 돌고 있는 일곱 개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초우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영원한 중앙우주의 한복판이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자 영원한 하느님의 처소인 고정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섬이다.

진화하는 일곱 개의 초우주들을 중앙의 그리고 신성한 우주와 관계적-연합으로, 우리는 보통 대우주(大宇宙)라 한다; 이것들은 현재 조직되어 있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들이다. 그들은 모두, 외부 공간의 거주민이 살지 않는 그러나 동원하고 있는 우주들을 포용하는, 주(主)우주의 일부이다.

제 I 장. 신(神)과 신성

우주들의 우주는 조화우주 실체, 마음 의미, 그리고 영 가치들의 각양의 차원들에서 신(神)이 활동하는 현상들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봉사사명들—개인적이든 다른 것이든—은 신성하게 조화-협동되어 있다.

신(神)은 하느님으로서 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데, 사람에 의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전(前)개인적이고 초(超)개인적이다. 신(神)은

of the realm. But our mandate admonishes us to make every effort to convey our meanings by using the word symbols of the English tongue. We have been instructed to introduce new terms only when the concept to be portrayed finds no terminology in English which can be employed to convey such a new concept partially or even with more or less distortion of meaning.

0:0.3 (1.3) In the hope of facilitating comprehension and of preventing confusion on the part of every mortal who may peruse these papers, we deem it wise to present in this initial statement an outline of the meanings to be attached to numerous English words which are to be employed in designation of Deity and certain associated concepts of the things, meanings, and values of universal reality.

0:0.4 (1.4) But in order to formulate this Foreword of definitions and limitations of terminology,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usage of these terms in the subsequent presentations. This Foreword is not, therefore, a finished statement within itself; it is only a definitive guide designed to assist those who shall read the accompanying papers dealing with Deity and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ch have been formulated by an Orvonton commission sent to Urantia for this purpose.

0:0.5 (1.5) Your world, Urantia, is one of many similar inhabited planets which comprise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is universe, together with similar creations, makes up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from whose capital, Uversa, our commission hails. Orvonton is one of the seven evolutionary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ich circle the never-beginning, never-ending creation of divine perfection —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At the heart of this eternal and central universe is the stationary Isle of Paradise, the geographic center of infinity and the dwelling place of the eternal God.

0:0.6 (1.6) The seven evolving superuniverses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we commonly refer to as the *grand universe*; these are the now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They are all a part of the *master universe*, which also embraces the uninhabited but mobil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I. DEITY AND DIVINITY

0:1.1 (2.1) The universe of universes presents phenomena of deity activities on diverse levels of cosmic realities, mind meanings, and spirit values, but all of these ministrations — personal or otherwise — are divinely co-ordinated.

0:1.2 (2.2) DEITY is personalizable as God, is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in ways not altogether comprehensible by man. Deity is

실체의 모든 초(超)물질적 차원에서 합일체—실체적 또는 잠재적—의 본질특성으로 특징되어 진다; 이 통합하는 본질특성은 창조체들에게 신성(神性)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고작이다.

신(神)은 개인적, 전(前)개인적, 초(超)개인적 차원에서 기능한다. 전체 신(神)은 다음과 같은 일곱 차원 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1. 정적(靜的)-자아-억제되고 자아-실존적인 신(神)

2. 잠재적(潛在的)-자아-의지적이고 자아-목적의 신(神)

3. 연관적(聯關的)-자아-개인성구현되고 신성하게 형제우애(兄弟友愛)로 있는 신(神)

4. 창조적(創造的)-자아-배분적이 되고 신성하게 계시되는 신(神)

5. 진화적(進化的)-자아-확대적이 되고 창조체-정체성 확인되는 신(神)

6. 최극적(最極的)-자아-체험적이고 창조체-창조자-합일하는 신(神). 대우주의 시간-공간 전반적-통제자들로서 최초의 창조체-정체화구현 차원에서 기능하는 신(神), 가끔 신(神)의 최극위로 나타낸다.

7. 궁극적(窮極的)-자아-구체적 투사이고 시간-공간-초월의 신(神). 전능(全能), 전지(全知), 전재(全在)의 신(神). 주(主)우주 의 효력적인 전반적-통제자들 그리고 아(亞)절대적 유지자(維持者)들로서 신성 표현을 통합하는 두 번째 차원에서 기능하는 신(神). 신(神)들의 대우주에 대한 사명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주(主)우주에서의 이 아(亞)절대적 차원의 기능은 우주적 전반적-통제 그리고 초(超)-지탱수단과 대등하며, 신(神)의 궁극위라고 불린다.

실체의 유한 차원은 창조체의 생명과 시간-공간 한계로서 특징되어 진다. 유한 실체들은 끝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시작이 있다—그들은 창조되었다. 최극위의 신(神) 차원은 유한 실존(實在)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실체의 아(亞)절대 차원은 시작됨이나 끝남이 없는 사물과 존재로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초월로서 특징되어 진다. 아(亞)절대자들은 창조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생겨난다.—그들은 단지 그렇다. 궁극위의 신(神) 차원은 아(亞)절대 실체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내포한다. 주(主)우주 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든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때마다, 그러한 아(亞)절대 현상은 신(神)의 궁극위의 활동이다.

절대 차원은 시작이란 것이 없음, 끝이란 것이 없음, 시간이란 것이 없음 그리고 공간이란 것이 없음이다.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에서 시간과 공간은 실존이 없다; 파라다이스의 시간-공간 지위는 절대적이다. 이 차원은, 실존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의해 달성되는 삼위일체이지

characterized by the quality of unity — actual or potential — on all supermaterial levels of reality; and this unifying quality is best comprehended by creatures as divinity.

0:1.3 (2:3) Deity functions on personal,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levels. Total Deity is functional on the following seven levels:

0:1.4 (2:4) 1. *Static* — self-contained and self-existent Deity.

0:1.5 (2:5) 2. *Potential* — self-willed and self-purposive Deity.

0:1.6 (2:6) 3. *Associative* — self-personalized and divinely fraternal Deity.

0:1.7 (2:7) 4. *Creative* — self-distributive and divinely revealed Deity.

0:1.8 (2:8) 5. *Evolutional* — self-expansive and creature-identified Deity.

0:1.9 (2:9) 6. *Supreme* — self-experiential and creature-Creator-unifying Deity. Deity functioning on the first creature-identificational level as time-space over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sometimes designated the Supremacy of Deity.

0:1.10 (2:10) 7. *Ultimate* — self-projected and time-space-transcending Deity. Deity omnipotent, omniscient, and omnipresent. Deity functioning on the second level of unifying divinity expression as effective overcontrollers and absonite upholders of the master universe. As compared with the ministry of the Deities to the grand universe, this absonite function in the master universe is tantamount to universal overcontrol and supersustenance, sometimes called the Ultimacy of Deity.

0:1.11 (2:11) *The finite level* of reality is characterized by creature life and time-space limitations. Finite realities may not have endings, but they always have beginnings — they are created. The Deity level of Supremacy may be conceived as a function in relation to finite existences.

0:1.12 (2:12) *The absonite level* of reality is characterized by things and beings without beginnings or endings and by the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Absonites are not created; they are eventuated — they simply are. The Deity level of Ultimacy connotes a function in relation to absonite realities. No matter in what part of the master universe, whenever time and space are transcended, such an absonite phenomenon is an act of the Ultimacy of Deity.

0:1.13 (2:13) *The absolute level* is beginningless, endless, timeless, and spaceless. For example: On Paradise, time and space are nonexistent; the time-space status of Paradise is absolute. This level is Trinity attained, existentially, by the Paradise Deities, but this third level of unifying

만, 그러나 신(神) 표현을 통합하는 이 세 번째 차원은, 체험적으로는, 충분하게 통합되지 않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신(神)의 절대차원이 기능하면 파라다이스-절대 가치들과 의미들은 현시된다.

신(神)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처럼 실존적일 수 있고; 최극존재 안에서처럼 체험적일 수 있다; 칠중 하느님 안에서처럼 연관적일 수 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처럼 비(非)분화적일 수 있다.

신(神)은 신성한 모든 것의 원천이다. 신(神)은 특징으로서 그리고 변함없이 신성이지만,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반드시 신(神)인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신(神)과 조화-협동되어 있고 신(神)과—영적, 마음적, 또는 개인적으로—합일에서의 어떤 위상을 지향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신성(神性)은 특징이며, 통합시키고 그리고 조화-협동시키는 신(神)의 본질특성이다.

신성은 창조체에게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성 속에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사명활동으로서 상관관계되며; 미(未)개인적 차원들에서는 공의(公義), 힘 그리고 주권으로 드러난다.

신성은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실존적 그리고 창조자 차원에서처럼 완전—완벽—할 수도 있다; 시간-공간 진화의 체험적 그리고 창조체 차원에서처럼 불완전할 수도 있다; 또는 실존적-체험적 관계에서의 특정한 하보나 차원들에서처럼 완전하지도 불완전하지도 않고, 상대적일 수도 있다.

상대성(相對性)의 모든 위상과 형태 속에서 완전성을 인식하려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인식 가능한 유형들을 접하게 된다:

1. 모든 양상에서의 절대적 완전성.
2. 몇몇 위상에서의 절대적 완전성과 다른 모든 양상에서의 상대적 완전성.
3. 다양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불완전한 양상들.
4. 몇몇 관점에서의 절대적 완전성, 그 밖의 모든 것에서의 불완전성.
5. 어떤 방향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다른 모든 현시(顯示)활동 속에서의 상대적 완전성.
6. 어떠한 위상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일부는 상대적이고, 그 밖의 다른 것에서는 불완전성.
7. 어떠한 속성에서도 절대적 완전성은 없고, 모든 것에서 불완전성.

제 II 장. 하느님

진화하는 필사자(必死者) 창조체들은 하느님

Deity expression is not fully unified experientially. Whenever, wherever, and however the absolute level of Deity functions, Paradise-absolute values and meanings are manifest.

0:1.14 (3.1) Deity may be existential, as in the Eternal Son; experiential, as in the Supreme Being; associative, as in God the Sevenfold; undivided, as in the Paradise Trinity.

0:1.15 (3.2) Deity is the source of all that which is divine. Deity is characteristically and invariably divine, but all that which is divine is not necessarily Deity, though it will be co-ordinated with Deity and will tend towards some phase of unity with Deity — spiritual, mindal, or personal.

0:1.16 (3.3) DIVINITY is the characteristic, unifying, and co-ordinating quality of Deity.

0:1.17 (3.4) Divinity is creature comprehensible as truth, beauty, and goodness; correlated in personality as love, mercy, and ministry; disclosed on impersonal levels as justice, power, and sovereignty.

0:1.18 (3.5) Divinity may be perfect — complete — as on existential and creator levels of Paradise perfection; it may be imperfect, as on experiential and creature levels of time-space evolution; or it may be relative, neither perfect nor imperfect, as on certain Havona levels of existential-experiential relationships.

0:1.19 (3.6) When we attempt to conceive of perfection in all phases and forms of relativity, we encounter seven conceivable types:

- 0:1.20 (3.7) 1. Absolute perfection in all aspects.
- 0:1.21 (3.8) 2. Absolute perfection in some phases and relative perfection in all other aspects.
- 0:1.22 (3.9) 3. Absolute, relative, and imperfect aspects in varied association.
- 0:1.23 (3.10) 4. Absolute perfection in some respects, imperfection in all others.
- 0:1.24 (3.11) 5. Absolute perfection in no direction, relative perfection in all manifestations.
- 0:1.25 (3.12) 6. Absolute perfection in no phase, relative in some, imperfect in others.
- 0:1.26 (3.13) 7. Absolute perfection in no attribute, imperfection in all.

II. GOD

0:2.1 (3.14) Evolving mortal creatures experience an

에 대한 자신들의 유한한 개념들을 상징화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체험한다. 도덕적 의무와 영적 이상주의에 대한 사람의 의식은, 상징화하기 힘든 가치 차원—체험적 실체—을 나타내고 있다.

조화우주 의식은 첫째 원인, 곧 유일한 원인 없는 실체의 인식을 암시하고 있다. 하느님, 우주 아버지는 하위-무한 가치와 상대적인 신성 표현에서의 세 가지 신(神)-개인성 차원에서 기능한다:

1. 전(前)개인적—생각 조절자와 같은, 아버지 단편(斷片)의 사명활동에서와 같이.

2. 개인적—창조된 그리고 탄생된 실존의 진화하는 체험에서와 같이.

3. 초(超)개인적—어떤 아(亞)절대적이고 연관된 실존의 결국 생겨난 실존에서와 같이.

하느님은 신(神)의 모든 개인성구현을 지칭하는 하나의 언어 상징이다. 이 용어가 신(神)의 다양한 조화-협동의 그리고 종속하는 개인성구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지역우주의 아버지—과 같이, 이 용어는 신(神) 기능의 각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정의가 필요하며, 그리고 각각의 이들 차원에서 아직도 더 다시 정의가 내려져야만 한다.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납득될 수 있다:

호칭에서—아버지 하느님으로

문맥에서—어떤 하나의 신(神) 차원 또는 관계적-연합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될 때처럼. 하느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것을 우주 아버지의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개인성을 가리킨다. 신(神)은 신성 개인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들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로 사용 된다:

1. 아버지 하느님—창조자, 통제자, 그리고 유지자. 우주 아버지, 신(神)의 첫째 개인.

2. 아들 하느님—조화-협동 창조자, 영 통제자, 그리고 영 관리행정자(管理者). 영원한 아들, 신(神)의 둘째 개인.

3. 영 하느님—공동 행위자, 우주 집대성을 이루는 자, 마음 증여자.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

4. 최극자 하느님—실재화하거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하느님. 창조체-창조자 정체성의 시간-공간 체험적 성취를 연관적으로 실현하는 개인적 신(神). 최극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창조체

irresistible urge to symbolize their finite concepts of God. Man's consciousness of moral duty and his spiritual idealism represent a value level — an experiential reality — which is difficult of symbolization.

0:2.2 (3.15) Cosmic consciousness implies the recognition of a First Cause, the one and only uncaused reality. God, the Universal Father, functions on three Deity-personality levels of subinfinite value and relative divinity expression:

0:2.3 (3.16) 1. *Prepersonal* — as in the ministry of the Father fragments, such as the Thought Adjusters.

0:2.4 (3.17) 2. *Personal* — as in the evolutionary experience of created and procreated beings.

0:2.5 (3.18) 3. *Superpersonal* — as in the eventuated existences of certain absonite and associated beings.

0:2.6 (3.19) GOD is a word symbol designating all personalizations of Deity. The term requires a different definition on each personal level of Deity function and must be still further redefined within each of these levels, as this term may be used to designate the diverse co-ordinate and subordinate personalizations of Deity; for example: the Paradise Creator Sons — the local universe fathers.

0:2.7 (4.1) The term God, as we make use of it, may be understood:

0:2.8 (4.2) *By designation* — as God the Father.

0:2.9 (4.3) *By context* — as when used in the discussion of some one deity level or association. When in doubt as to the exact interpretation of the word God, it would be advisable to refer it to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0:2.10 (4.4) The term God always denotes *personality*. Deity may, or may not, refer to divinity personalities.

0:2.11 (4.5) The word GOD is used, in these papers, with the following meanings:

0:2.12 (4.6) 1. *God the Father* — Creator, Controller, and Upholder. The Universal Father, the First Person of Deity.

0:2.13 (4.7) 2. *God the Son* — Co-ordinate Creator, Spirit Controller, and Spiritual Administrator. The Eternal Son, the Second Person of Deity.

0:2.14 (4.8) 3. *God the Spirit* — Conjoint Actor, Universal Integrator, and Mind Bestower.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0:2.15 (4.9) 4. *God the Supreme* — the actualizing or evolving God of time and space. Personal Deity associatively realizing the time-space experiential achievement of creature-Creator identity. The

들의 진화하는 그리고 체험적 하느님으로서 신(神) 합일의 성취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5. 칠중 하느님—시간과 공간 속의 모든 곳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신(神) 개인성. 중앙우주 안에서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서 기능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신(神) 계시를 통합하는 첫 번째 창조체 차원에 있는 최극존재로서 힘-개인성구현하는, 개인적인 파라다이스 신(神)과 그들의 창조적 연관-동료들. 이런 차원, 대우주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의 시간-공간 하강(下降)이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시간-공간 상승과 상호보답적인 관계적-연합 속에 있는 구체다.

6. 궁극자 하느님—초(超)시간과 초월된 공간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하느님. 통합하는 신(神) 현시활동의 두 번째 체험적 차원. 궁극자 하느님은 신(神) 실체의 최종 창조적 차원에서 조화-협동되는, 합성된 아(亞)절대-초개인적, 시간-공간-초월된 그리고 결국 생겨난-체험적 가치가 달성되어진 실현을 내포하고 있다.

7. 절대자 하느님—초월된 초(超)개인적 가치들과 신성 의미들을 체험적인 것으로 만드는 하느님, 현재는 신(神) 절대자로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신(神) 표현과 확대를 통합하는 세 번째 차원이다. 이 초(超)창조적 차원에서 신(神)은 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 잠재성의 고갈을 체험하고, 신성의 완벽과 마주치며, 연속적이고도 점진적인 다른-개인성구현 차원에 자아-계시하는 수용능력의 고갈을 겪는다. 이제 신(神)은 분별불가 절대자를, 만나고, 부딪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체성을 체험한다.

Supreme Being is personally experiencing the achievement of Deity unity as the evolving and experiential God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ime and space.

0:2.16 (4.10) 5. *God the Sevenfold* — Deity personality anywhere actually functioning in time and space. The personal Paradise Deities and their creative associates functioning in and beyond the border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power-personalizing as the Supreme Being on the first creature level of unifying Deity revelation in time and space. This level, the grand universe, is the sphere of the time-space descension of Paradise personalities in reciprocal association with the time-space ascension of evolutionary creatures.

0:2.17 (4.11) 6. *God the Ultimate* — the eventuating God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The second experiential level of unifying Deity manifestation. God the Ultimate implies the attained realization of the synthesized absonite-superpersonal, time-space-transcended, and eventuated-experiential values, co-ordinated on final creative levels of Deity reality.

0:2.18 (4.12) 7. *God the Absolute* — the experientializing God of transcended superpersonal values and divinity meanings, now existential as the *Deity Absolute*. This is the third level of unifying Deity expression and expansion. On this supercreative level, Deity experiences exhaustion of personalizable potential, encounters completion of divinity, and undergoes depletion of capacity for self-revelation to successive and progressive levels of other-personalization. Deity now encounters, impinges upon, and experiences identity with, the *Unqualified Absolute*.

제 III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

전체, 무한한 실체는 일곱 위상 안에서 그리고 일곱 조화-협동 절대자들로서 실존적이다.

1. 첫째근원이며 중심.
2. 둘째근원이며 중심.
3. 셋째근원이며 중심.
4. 파라다이스 섬.
5. 신(神) 절대자.
6. 우주 절대자.
7. 분별불가 절대자.

하느님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으로서 전체 실체와의 관계 안에서 시원적(始原的)이다.—분별불가하게 그러하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 그리고 그리하여 오직 의지작용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조건 지워진다.

하느님—우주 아버지—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III. THE FIRST SOURCE AND CENTER

0:3.1 (4.13) Total, infinite reality is existential in seven phases and as seven co-ordinate Absolutes:

- 0:3.2 (5.1) 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0:3.3 (5.2) 2.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 0:3.4 (5.3) 3. The Third Source and Center.
- 0:3.5 (5.4) 4. The Isle of Paradise.
- 0:3.6 (5.5) 5. The Deity Absolute.
- 0:3.7 (5.6) 6. The Universal Absolute.
- 0:3.8 (5.7) 7. The Unqualified Absolute.

0:3.9 (5.8) God, a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rimal in relation to total reality — unqualifiedl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as well as eternal and is therefore limited or conditioned only by volition.

0:3.10 (5.9) God — the Universal Father — is the

의 개인성이며 모든 조화-협동적인 그리고 종속적인 근원과 중심들을 무한 통제하는 개인적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 그러한 통제는, 그렇게 조화-협동적 그리고 종속적 근원과 중심과 개인성들의 기능의 완전성 때문에, 그것이 비록 실제로는 결코 기능하지 않을지라도 잠재성에서 개인적이며 무한하다.

그러므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신(神)화 되었거나 비(非)신(神)화 되었거나, 개인적이거나 미(未)개인적이거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모든 권역에서 시원적이다. 어떠한 사물이나 존재, 어떠한 상관이나 최종이든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에 다음과 같이 관계되어 있다:

1. 물질적 우주의 중력 기체들은 하부 파라다이스의 중력 중심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그것이 바로, 그의 개인의 지리적 위치가, 파라다이스의 하부 곧 물질적 평면의 기체-에너지 중심과의 절대적 관계 안에 영원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신(神)의 절대 개인성은 파라다이스의 상부 또는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2. 마음 기체는 무한한 영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차별적이고 발산적(發散的)인 조화우주 마음은 일곱 주(主) 영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시간-공간 체험으로서 사실화하는 최극자의 마음은 장엄자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3. 우주 영(靈) 기체는 영원한 아들 안에 한 점으로 집중된다.

4. 신(神) 활동을 위한 무제한적 수용능력은 신(神) 절대자 안에 갖추어져 있다.

5. 무한 응답을 위한 무제한적 수용능력은 분별불가 절대자 속에 존재한다.

6. 두 절대자—분별화된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합일되고 조화-협동을 이루고 있다.

7.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 또는 다른 어떤 도덕적 존재의 잠재적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집중되어있다.

실체는, 유한존재들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림자와 같다. 진화하는 유한 창조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神) 실체는 최극존재 품 안에서 포용되어진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는 시간-공간 창조체들의 이 최극 신(神)에게 조상이 되는 선행적이고 영원한 실체들, 초(超)유한 실체들이 있다. 우주 실체의 기원과 본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우리는 유한 마음차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시간-공간 추론의 기법을 채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영원의 동시적 사건들이 순차적인 활동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such maintains personal relations of infinite control over all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urces and centers. Such control is personal and infinite in *potential*, even though it may never actually function owing to the perfection of the function of such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urces and centers and personalities.

0:3.11 (5.10)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refore, primal in all domains: deified or undeified, personal or impersonal, actual or potential, finite or infinite. No thing or being, no relativity or finality, exists except in direct or indirect relation to, and dependence on,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0:3.12 (5.1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related to the universe as:

0:3.13 (5.12) 1. The gravity forces of the material universes are convergent in the gravity center of nether Paradise. That is just why the geographic location of his person is eternally fixed in absolute relation to the force-energy center of the nether or material plane of Paradise. But the absolute personality of Deity exists on the upper or spiritual plane of Paradise.

0:3.14 (5.13) 2. The mind forces are convergent in the Infinite Spirit; the differential and divergent cosmic mind in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factualizing mind of the Supreme as a time-space experience in Majeston.

0:3.15 (5.14) 3. The universe spirit forces are convergent in the Eternal Son.

0:3.16 (5.15) 4. The unlimited capacity for deity action resides in the Deity Absolute.

0:3.17 (5.16) 5. The unlimited capacity for infinity response exists in the Unqualified Absolute.

0:3.18 (5.17) 6. The two Absolutes — Qualified and Unqualified — are co-ordinated and unified in and by the Universal Absolute.

0:3.19 (5.18) 7. The potential personality of an evolutionary moral being or of any other moral being is centered in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0:3.20 (5.19) REALITY, as comprehended by finite beings, is partial, relative, and shadowy. The maximum Deity reality fully comprehensible by evolutionary finite creatures is embraced within the Supreme Being. Nevertheless there are antecedent and eternal realities, superfinite realities, which are ancestral to this Supreme Deity of evolutionary time-space creatures. In attempting to portray the origin and nature of universal reality, we are forced to employ the technique of time-space reasoning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the finite mind. Therefore must

행위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시간-공간 창조체가 실체의 기원과 차별화된 분화를 본다고 한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는 선천적이고 영원한 자유의지의 행사를 통하여 분별불가한 무한의 족쇄로부터 신(神) 해방을 획득하였고, 분별불가 무한으로부터의 이 결별은 최초의 절대 신성-긴장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무한 차별의 긴장은, 전체 신(神)의 역동적 무한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정적인 무한을 통합시키고 조화-협동시키려고 기능하는 우주 절대자에 의해 해소된다.

이러한 기원적 활동행위에 있어서,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는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근원이 됨과 동시에 근원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개인성 실현을 성취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와 구별됨으로서 공존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현존 안에서, 무한한 영의 개인과 하보나라는 중앙우주가 출현된다. 공존하는 개인적 신(神),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출현과 함께, 아버지는, 한 개인성으로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총체적 신(神)의 잠재성에 두루 불가피할 확산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모든 신(神) 잠재성을 채우는 일은 오직 그의 동등한 두 신(神)들과 관계적-연합하는, 삼위일체 안에서만 이며 그러면서 한편, 체험적인 신(神)은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성의 신성 차원에서 점점 더 실재화되고 있다.

스스로 이신 이라는 개념은, 시간에-간혀있고 공간에-매인 인간의 유한한 마음에게, 영원함—시작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실체와 관계성들—이 실존이라는 것에 대한 창조체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가 만든 철학적 양보이다. 시간-공간 창조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원인 없는 한 분—원인들 중 최초의 원인—외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학적 가치-차원을 스스로 이신 이로서 개념화시키고, 동시에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스스로 이신 이와 공존영원이라는 것을 모든 창조체들에게 가르킨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신 이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와 함께, 영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결코 없었다.

무한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이 내포하는 충만함—최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는 “의지의 무한”에 대한 창조체-철학적 확장이지만, 무한자는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속박 받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참 무한의 영원-긴장을 나타내는 실재적 가치-차원이다. 이 개념은 종종 아버지-무한으로 명시된다.

아버지-무한자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높고 낮은 존재들의 모든 계층에서의 대부분의 혼동은 그들 이해력 한계들로서 선천적이다. 우주 아버지의 절대 시원성은 하위-무한 차원들에서는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정

many of the simultaneous events of eternity be presented as sequential transactions.

0:3.21 (6.1) As a time-space creature would view the origin and differentiation of Reality, the eternal and infinite I AM achieved Deity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unqualified infinity through the exercise of inherent and eternal free will, and this divorcement from unqualified infinity produced the first *absolute divinity-tension*. This tension of infinity differential is resolved by the Universal Absolute, which functions to unify and co-ordinate the dynamic infinity of Total Deity and the static infinit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0:3.22 (6.2) In this original transaction the theoretical I AM achieved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by becoming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simultaneously with becoming the Eternal Source of the Isle of Paradise. Coexistent with the differentiation of the Son from the Father, and in the presence of Paradise, there appeared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With the appearance of coexistent personal Deit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Father escaped, as a personality, from otherwise inevitable diffusion throughout the potential of Total Deity. Thenceforth it is only in Trinity association with his two Deity equals that the Father fills all Deity potential, while increasingly experiential Deity is being actualized on the divinity level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0:3.23 (6.3) The concept of the I AM is a philosophic concession which we make to the time-bound, space-fettered, finite mind of man, to the impossibility of creature comprehension of eternity existences — nonbeginning, nonending realities and relationships. To the time-space creature, all things must have a beginning save only the ONE UNCAUSED — the primeval cause of causes. Therefore do we conceptualize this philosophic value-level as the I AM, at the same time instructing all creatures that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coeternal with the I AM; in other words, that there never was a time when the I AM was not the *Father* of the Son and, with him, of the Spirit.

0:3.24 (6.4) The *Infinite* is used to denote the fullness — the finality — implied by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theoretical* I AM is a creature-philosophic extension of the “infinity of will,” but the *Infinite* is an *actual* value-level representing the eternity-intension of the true infinity of the absolute and unfettered fre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This concept is sometimes designated the Father-Infinite.

0:3.25 (6.5) Much of the confusion of all orders of beings, high and low, in their efforts to discover the Father-Infinite, is inherent in their limitations of comprehension. The absolute primacy of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pparent on subinfinite

말로 아버지를 무한으로 아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모든 개인성들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신앙의 과제를 나타낸다.

levels; therefore is it probable that onl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ruly know the Father as an infinity; to all other personalities such a concept represents the exercise of faith.

제 IV 장. 우주 실체

실체는 다양한 우주 차원들에서 서로 다르게 실재화 한다; 실체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 의지작용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기원되고 우주 실재화구현의 서로 다른 많은 차원들에서 세 가지 시원적 위상들로 실현가능 하다:

1. 비(非)신(神)화된 실체는 비(非)개인적인 것의 에너지 권역에서부터 우주적 실존의 비(非)개인성구현화 할 수 있는 가치들의 실체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다.

2. 신(神)화된 실체는 가장 낮은 유한으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에 이르는 개인성의 모든 영역들을 지나고 그 위쪽으로 범위를 갖는 무한 신(神) 잠재성의 모두를 포용한다. 그렇게 개인성구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인 모든 것의 권역을—심지어는 신(神) 절대자의 현존까지—포용한다.

3. 상호-연관된 실체. 우주 실체는 아마도 신(神)화되었거나 비(非)신(神)화 되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지만, 하위-신(神)화 존재들에게는 정체화구현이 어려운, 잠재적이고 실재화하는, 상호-연관된 실체의 광대한 권역이 존재한다. 이 조화-협동 실체의 대부분은 우주 절대자의 영역 속에 포용된다.

기원적 실체의 시원적 개념은 이러하다: 아버지가 실체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실체의 시원적 차이점들은 신(神)화된 존재와 비(非)신(神)화된 존재—신(神)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이다. 시원적 관계는 그들 사이의 긴장이다. 아버지가-시작한 이 신성-긴장은 우주 절대자에 의해 완전하게 해결되고 우주 절대자로서 영원화 한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는 다음과 같이 더 구분될 수 있다:

1. 실체적과 잠재적. 표현의 충만함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들과 이와 대조되는 드러나지 않은 성장의 수용능력을 갖는 것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 영적 실재성이다; 필사 사람은 매우 광범위하게 실현되지 않은 영적 잠재성이다.

2. 절대적과 하위-절대적. 절대 실체들은 영원 실존들이다. 하위-절대 실체들은 두 차원들 위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있다; 아(亞)절대—시간과 영원 모두에 관하여 관계적인 차원에 있다. 유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있고 시간 속에서 실재화되는 차원에 있다.

3. 실존적과 체험적. 파라다이스 신(神)은 실존적이지만, 창발(創發)하는 최극자와 궁극자는 체험적이다.

IV. UNIVERSE REALITY

0:4.1 (6.6) Reality differentially actualizes on diverse universe levels; reality originates in and by the infinite vol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is realizable in three primal phases on many different levels of universe actualization:

0:4.2 (6.7) 1. *Undeified reality* ranges from the energy domains of the nonpersonal to the reality realms of the nonpersonalizable values of universal existence, even to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0:4.3 (7.1) 2. *Deified reality* embraces all infinite Deity potentials ranging upward through all realms of personality from the lowest finite to the highest infinite, thus encompassing the domain of all that which is personalizable and more — even to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0:4.4 (7.2) 3. *Interassociated reality*. Universe reality is supposedly either deified or undeified, but to subdeified beings there exists a vast domain of interassociated reality, potential and actualizing, which is difficult of identification. Much of this co-ordinate reality is embraced within the realms of the Universal Absolute.

0:4.5 (7.3) This is the primal concept of original reality: The Father initiates and maintains Reality. The primal *differentials* of reality are the deified and the undeified — the Deity Absolute and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primal *relationship* is the tension between them. This Father-initiated divinity-tension is perfectly resolved by, and eternalizes as, the Universal Absolute.

0:4.6 (7.4) From the viewpoint of time and space, reality is further divisible as:

0:4.7 (7.5) 1. *Actual and Potential*. Realities existing in fullness of expression in contrast to those which carry undisclosed capacity for growth. The Eternal Son is an absolute spiritual actuality; mortal man is very largely an unrealized spiritual potentiality.

0:4.8 (7.6) 2. *Absolute and Subabsolute*. Absolute realities are eternity existences. Subabsolute realities are projected on two levels: Absonites — realities which are relative with respect to both time and eternity. Finites — realities which are projected in space and are actualized in time.

0:4.9 (7.7) 3.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but the emerging Supreme and Ultimate are experiential.

4. 개인적과 미(未)개인적. 신(神) 확대, 개인성 표현 그리고 우주 진화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안에 중심을 두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실제성과 잠재성의 가치들 그리고 마음-영-개인적 의미들을 언제까지나 분리시켜 영원한 아들 안에 중심을 두게 하는, 아버지의 자유의지 활동에 의해 언제까지나 갖추어진다.

파라다이스는 우주 실체의 모든 위상들의 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에 대한 포괄적 용어이다. 파라다이스는, 올바르게 분별화하면, 실체, 신(神), 신성, 개인성 그리고 에너지의 의 일부 또는 모든 형태—영적, 마음적, 또는 물질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치, 의미 그리고 사실적 실존에 관해서, 모두가 파라다이스를 기원과 기능과 운명의 장소로서 공유한다.

파라다이스 섬—별달리 분별화되지 않은 파라다이스—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물질-중력 통제체의 절대자이다. 파라다이스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고정된 것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간 속에서 아무런 자리가 없다. 영원한 이 섬은 물리적 우주—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제적 근원이다. 핵을 이루는 빛의 섬은 신(神)의 파생이지만, 그것은 신(神)이 전혀 아니다; 또한 신(神)의 일부분인, 물질적 창조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귀결이다.

파라다이스는 창조자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우주 활동에 대한 독특한 통제자인데, 반응장치라기보다는 통제자에 훨씬 가깝다. 물질적 우주에 두루 파라다이스는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과 상관 있는 모든 존재들의 반응과 행위성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파라다이스 자신은 우주 안에서 독특하고 배타적이며 고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고 아무 것도 파라다이스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기세도 아니고 현존(顯存)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파라다이스일 뿐이다.

제 V 장. 개인성 실체

개인성은 신(神)화 된 실체의 차원이며, 경배와 지혜의 상급 마음 활동화에 있는 필사자와 그리고 중도자 차원에서부터, 그 위로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차원을 지나 개인성 지위의 최종 달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미치고 있다. 그것은 필사- 그리고 친족이 되는-창조체 개인성의 진화적 상승이며, 한편 수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개인성들이 존재한다.

실체는 우주적 확대가 전제되고, 개인성은 무한한 다양화가 전제되며, 그리고 이 둘 모두는 거의 무제한적 신(神) 조화-협동과 영원한 안정을 이룩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비(非)개인적 실체의 형태변형 범위는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개인성 실체들의 진보적인 진화에는 어떤 한계도 없음을 안다.

0:4.10 (7.8) 4. *Personal and Impersonal.* Deity expansion, personality expression, and universe evolution are forever conditioned by the Father's freewill act which forever separated the mind-spirit-personal meanings and values of actuality and potentiality centering in the Eternal Son from those things which center and inhere i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0:4.11 (7.9) PARADISE is a term inclusive of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focal Absolutes of all phases of universe reality. Paradise, properly qualified, may connote any and all forms of reality, Deity, divinity, personality, and energy — spiritual, mindal, or material. All share Paradise as the place of origin, function, and destiny, as regards values, meanings, and factual existence.

0:4.12 (7.10) *The Isle of Paradise* — Paradise not otherwise qualified — is the Absolute of the material-gravity contro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Paradise is motionless, being the only stationary th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Isle of Paradise has a universe location but no position in space. This eternal Isle is the actual source of the physical universes — past, present, and future. The nuclear Isle of Light is a Deity derivative, but it is hardly Deity; neither are the material creations a part of Deity; they are a consequence.

0:4.13 (7.11) Paradise is not a creator; it is a unique controller of many universe activities, far more of a controller than a reactor. Throughout the material universes Paradise influences the reactions and conduct of all beings having to do with force, energy, and power, but Paradise itself is unique, exclusive, and isolated in the universes. Paradise represents nothing and nothing represents Paradise. It is neither a force nor a presence; it is just *Paradise*.

V. PERSONALITY REALITIES

0:5.1 (8.1) Personality is a level of deified reality and ranges from the mortal and midwayer level of the higher mind activation of worship and wisdom up through the morontial and spiritual to the attainment of finality of personality status. That is the evolutionary ascent of mortal- and kindred-creature personality, but there are numerous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0:5.2 (8.2) Reality is subject to universal expansion, personality to infinite diversification, and both are capable of well-nigh unlimited Deity co-ordination and eternal stabilization. While the metamorphic range of nonpersonal reality is definitely limited, we know of no limitations to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personality realities.

체험적 차원들을 달성할 때, 모든 개인성 계층이나 또는 가치는 연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공동창조적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미가엘의 현재 지위—사람의 아들 및 하느님의 아들—안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실증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사람까지도 합일된 개인성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개인성의 모든 하위-무한 계층들과 위상들은 연관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공동창조적이다. 전(前)개인적, 개인적, 그리고 초(超)개인적 존재들은 조화-협동적 달성, 진보적 성취 그리고 공동창조적 수용능력의 상호간의 잠재성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미(未)개인적 존재들은 직접 개인성 존재로 결코 변형될 수 없다. 개인성은 결코 자연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선물이다. 개인성은 에너지 위에 포개어 얹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생명의 에너지 체계와 연관된다; 정체성은 비(非)생명의 에너지 원형들(元型들)들과 연관될 수 있다.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의 실체, 개인성의 중여, 그리고 개인성의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 개인성, 영적 에너지, 모론시아 영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들의 비밀이다. 공동 행위자는 영-마음 개인성, 지능과 이성 그리고 우주적 마음의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심은 비(非)개인적이며, 가외(加外)영적, 우주 몸체의 본질 존재, 물리적 물질의 근원이자 중심, 그리고 우주의 물질적 실체의 절대 주(主)원형들(元型들)이다.

우주 실체의 이러한 본질특성들은 다음과 같은 차원들에서 유란시아의 인간 체험 속에서 현시된다:

1. 몸체. 사람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유기조직체. 동물의 자연본성과 기원을 갖는 생명의 전기 화학적 기능구조.

2. 마음. 인간 유기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구조. 모든 의식 그리고 무의식 체험 전체. 경배와 지혜를 통하여, 위로는 영 차원까지 이르는 감정적 생명과 연관된 지능.

3. 영. 사람의 마음에 깃드는 신성한 영—생각 조절자. 이 불멸의 영은, 비록 생존되는 필사 창조체 개인성의 일부분이 되도록 운명되었지만, 개인성이 아니고-전(前)개인적이다.

4. 혼. 사람의 혼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필사 창조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그렇게 깃들어 있는 영은 인간 체험 안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 이면서 그리고 물질적 마음은 바로 이 창발(創發)하는 실체의 어머니이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며—그것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0:5.3 (8.3) On attained experiential levels all personality orders or values are associable and even cocreational. Even God and man can coexist in a unified personality, as is so exquisitely demonstrated in the present status of Christ Michael — Son of Man and Son of God.

0:5.4 (8.4) All subinfinite orders and phases of personality are associative attainables and are potentially cocreational. The prepersonal, the personal, and the superpersonal are all linked together by mutual potential of co-ordinate attainment, progressive achievement, and cocreational capacity. But never does the impersonal directly transmute to the personal. Personality is never spontaneous; it is the gift of the Paradise Father. Personality is superimposed upon energy, and it is associated only with living energy systems; identity can be associated with nonliving energy patterns.

0:5.5 (8.5) The Universal Father is the secret of the reality of personality, the bestowal of personality, and the destiny of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personality, the secret of spiritual energy, morontia spirits, and perfected spirits. The Conjoint Actor is the spirit-mind personality, the source of intelligence, reason, and the universal mind. But the Isle of Paradise is nonpersonal and extraspiritual, being the essence of the universal body, the source and center of physical matter, and the absolute master pattern of universal material reality.

0:5.6 (8.6) These qualities of universal reality are manifest in Urantian human experience on the following levels:

0:5.7 (8.7) 1. *Body*. The material or physical organism of man. The living electrochemical mechanism of animal nature and origin.

0:5.8 (8.8) 2. *Mind*. The thinking, perceiving, and feeling mechanism of the human organism. The total conscious and unconscious experience. The intelligence associated with the emotional life reaching upward through worship and wisdom to the spirit level.

0:5.9 (8.9) 3. *Spirit*. The divine spirit that indwells the mind of man — the Thought Adjuster. This immortal spirit is prepersonal — not a personality, though destined to become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the surviving mortal creature.

0:5.10 (8.10) 4. *Soul*. The soul of man is an experiential acquirement. As a mortal creature choose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so the indwelling spirit becomes the father of a *new reality* in human experience.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is the mother of this same emerging reality. The substance of this new reality is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 it is *morontial*. This is the

필사자 죽음에서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된 창발하는 불멸의 혼이다.

개인성. 필사 사람의 개인성은 몸체도 마음도 영도 아니다; 그것은 혼 또한 아니다. 개인성은 모든 것이 항상-변하는 창조체 체험 속에 있는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실체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연관된 개별존재성의 요소들을 통합시킨다.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가 물질, 마음, 그리고 영의 살아있고 연관된 에너지들 위에 이룩하는, 그리고 모론시아 혼의 생존으로 살아남는, 독특한 증여물이다.

모론시아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있는 광대한 차원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개인적 또는 미(未)개인적 실체들, 생명의 또는 비(非)생명의 에너지들을 가리킬 수 있다. 모론시아의 날줄은 영적이다; 한편 그 씨줄은 물리적이다.

제 VI 장. 에너지와 원형틀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개인적이라고 부른다. 아들의 영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무한한 영의 속성으로서의 마음—그 모든 위상에 있는 마음—이다. 하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물질-중력 순환회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물질—그 모든 형태 변형 상태에 있는 에너지-물질—이라고 부른다.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 마음적, 그리고 물질적 영역 모든 것을-포함하여 적용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기세도 역시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힘은 대개 대우주 안에 있는 물질적 또는 직선적-중력-응답 물질의 전자적 차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힘은 주권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된다. 우리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세와 에너지 그리고 힘에 대한 정의(定意)를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용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리적 에너지는 현상적 움직임, 활동 그리고 잠재성의 모든 위상과 형태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물리-에너지 현시활동을 논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화우주 기세, 창발 에너지, 그리고 우주 힘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사용 된다:

1. 조화우주 기세는 분별불가 절대자로부터 유래되어 나오지만 그러나 아직은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지는 않는 모든 에너지들을 포용한다.

2. 창발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중력에는 응답하지만 지역적 또는 직선 중력에 아직 응답하지 않는 에너지들을 포용한다. 이것은 에너지-물질의 전자-이전(以前) 차원이다.

emerging and immortal soul which is destined to survive mortal death and begin the Paradise ascension.

0:5.11 (9.1) *Personality*. The personality of mortal man is neither body, mind, nor spirit; neither is it the soul. Personality is the one changeless reality in an otherwise ever-changing creature experience; and it unifies all other associated factors of individuality. The personality is the unique bestowal which the Universal Father makes upon the living and associated energies of matter, mind, and spirit, and which survives with the survival of the morontial soul.

0:5.12 (9.2) *Morontia* is a term designating a vast level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t may designate personal or impersonal realities, living or nonliving energies. The warp of morontia is spiritual; its woof is physical.

VI. ENERGY AND PATTERN

0:6.1 (9.3) Any and all things responding to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Father, we call personal. Any and all things responding to the spirit circuit of the Son, we call spirit. Any and all that responds to the mind circuit of the Conjoint Actor, we call mind, mind as an attribute of the Infinite Spirit — mind in all its phases. Any and all that responds to the material-gravity circuit centering in nether Paradise, we call matter — energy-matter in all its metamorphic states.

0:6.2 (9.4) *ENERGY* we use as an all-inclusive term applied to spiritual, mindal, and material realms. *Force* is also thus broadly used. *Power* is ordinarily limited to the designation of the electronic level of material or linear-gravity-responsive matter in the grand universe. Power is also employed to designate sovereignty. We cannot follow your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s of force, energy, and power. There is such paucity of language that we must assign multiple meanings to these terms.

0:6.3 (9.5) *Physical energy* is a term denoting all phases and forms of phenomenal motion, action, and potential.

0:6.4 (9.6) In discussing physical-energy manifestations, we generally use the terms cosmic force, emergent energy, and universe power. These are often employed as follows:

0:6.5 (9.7) 1. *Cosmic force* embraces all energies deriving from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hich are as yet un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0:6.6 (9.8) 2. *Emergent energy* embraces those energies which are 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but are as yet unresponsiv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is is the pre-electronic level of energy-

3. 우주 힘은 파라다이스 중력에 여전히 응답하면서, 한편 직선 중력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에너지-물질의 전자자원과 그로부터 뒤따라 일어나는 모든 진화들을 포함한다.

마음은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덧붙인, 살아있는 사명활동의 현존-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지능 차원에 진실로 그러하다. 개인성 안에서 마음은 언제나 영과 물질 사이에 끼어있다; 그 결과 우주는 세 종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진다; 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그리고 영(靈) 광채이다.

빛-영 광채—은 하나의 단어상징, 다양한 계층의 영 존재들이 개인성으로 현시활동되어 있음을 특징으로서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 광채의 방출은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빛의 현시활동과는 어떤 면에서도 관계가 없다.

원형들은 물질적, 영적, 또는 마음적, 또는 이들 에너지들의 모든 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성, 정체성, 실존개체, 또는 비(非)생명 물질에 가득 퍼질 수 있다. 그러나 원형들은 원형들 자체이고 원형들로 남아 있다; 오직 복제들만이 배가(倍加)된다.

원형들은 에너지를 배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중력만이 에너지-물질에 대한 유일한 통제이다. 공간이나 원형들 모두가 다 중력에는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간과 원형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 공간은 원형들도, 잠재적 원형들도 모두 아니다. 원형들은 모든 중력의 빛을 이미 다 갚은 실체의 배열이다; 어떠한 원형들로 이루어진 실체는 에너지, 마음, 영 또는 물질 성분들로 구성된다.

전체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원형들은 에너지의 그리고 개인성의 개별적 양상을 나타낸다. 개인성 또는 정체성 형태들은 에너지(물리적, 영적, 또는 마음적)로부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원형들이지만 그러나 형태들이 선천적으로 원형들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원형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 덕분에, 그 에너지의 또는 그 개인성의 본질특성이 하느님—신(神)—으로, 파라다이스 기세 자질로, 개인성과 힘의 공존으로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 같다.

원형들은 복제들이 만들어지는 주(主) 설계도이다.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원형들의 절대이다; 영원한 아들은 원형들 개인성이다; 우주 아버지는 그 둘 모두의 직접적 조상-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원형들을 증여하지 않으며, 아들은 개인성을 증여할 수 없다.

matter.

0:6.7 (9.9) 3. *Universe power* includes all forms of energy which, while still responding to Paradise gravity, are directly responsive to linear gravity. This is the electronic level of energy-matter and all subsequent evolutions thereof.

0:6.8 (9.10) *Mind* is a phenomenon connoting the presence-activity of *living ministry* in addition to varied energy systems; and this is true on all levels of intelligence. In personality, mind ever intervenes between spirit and matter; therefore is the universe illuminated by three kinds of light: material light, intellectual insight, and spirit luminosity.

0:6.9 (10.1) *Light* — spirit luminosity — is a word symbol, a figure of speech, which connotes the personality manifestation characteristic of spirit beings of diverse orders. This luminous emanation is in no respect related either to intellectual insight or to physical-light manifestations.

0:6.10 (10.2) *PATTERN* can be projected as material, spiritual, or mindal, or any combination of these energies. It can pervade personalities, identities, entities, or nonliving matter. But pattern is pattern and remains pattern; only *copies* are multiplied.

0:6.11 (10.3) Pattern may configure energy, but it does not control it. Gravity is the sole control of energy-matter. Neither space nor pattern are gravity responsive, bu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attern; space is neither pattern nor potential pattern. Pattern is a configuration of reality which has already paid all gravity debt; the *reality* of any pattern consists of its energies, its mind, spirit, or material components.

0:6.12 (10.4) In contrast to the aspect of the *total*, pattern discloses the *individual* aspect of energy and of personality. Personality or identity forms are patterns resultant from energy (physical, spiritual, or mindal) but are not inherent therein. That quality of energy or of personality by virtue of which pattern is caused to appear may be attributed to God — Deity — to Paradise force endowment, to the coexistence of personality and power.

0:6.13 (10.5) Pattern is a master design from which copies are made. Eternal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the Eternal Son is the pattern personality; the Universal Father is the direct ancestor-source of both. But Paradise does not bestow pattern, and the Son cannot bestow personality.

제 VII 장. 최극존재

VII. THE SUPREME BEING

주(主)우주 의 신(神) 기능구조는 영원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중적이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은 영원하시다—모두 실존적 실존이시다—, 반면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은, 시간-공간 안에서 그리고 주(主)우주 진화적 확대의 시간-공간-초월 구체들 안에서 하보나-이후 신(新)시대의, 실재화하는 신(神) 개인성들이다. 이들 실재화하는 신(神) 개인성들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연관적-창조적 잠재성들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의 기법에 의해 성장하는 우주들 안에서 그들이 힘-개인성구현 할 때부터, 그리고 것처럼, 미래 영원자(永遠者)들이다.

신(神)은, 그러므로, 현존에서 2원적(二元的)이다:

제 1 장. 실존적—영원한 실존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재들.

제 2 장. 체험적—하보나-이후 현재 속에서 실재화하는 그러나 모든 미래 영원에 두루 끝남이 없는 실존의 존재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실존적—실재성에서 실존적이다. (모든 잠재성들이 체험적이라고 생각 되더라도) 최극자와 궁극자는 전적으로 체험적이다. 신(神) 절대자는 실재화구현됨에 있어서 체험적이지만 잠재성에 있어서는 실존적이다. 신(神)의 본질은 영원이지만, 그러나 오직 신(神)의 세 기원적 개인들만이 분별불가하게 영원하다. 모든 다른 신(神) 개인성들은 기원을 갖지만 그러나, 그들은 운명에 있어서 영원하다.

아들과 영 안에서 자신에 대한 실존적 신(神) 표현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으로서, 지금까지 미(未)개인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신(神) 차원에서, 체험적 표현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험적 신(神)이 지금은 충분하게 실존적이지는 않다; 그들은 실재화구현의 과정에 있다.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 하느님은 삼원일체(三元一體) 파라다이스 신(神)의 개인적 영 반영이다. 이 연관적인 신(神) 관계는 칠중 하느님으로 지금 창조적으로 확대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우주 안에 있는 전능 최극자의 체험적 힘으로 합성되고 있다. 세 개인으로서 실존적인, 파라다이스 신(神)은 최극위의 두 위상들 안에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 이원적 위상들은 힘-개인성이 한 분 주님, 최극존재로서 통합하는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 삼중 신(神) 개인성구현에 의해 무한함의 속박과 영원함의 족쇄로부터 자유의지 해방을 성취하신다. 최극존재는 대우주의 시간-공간마디 안에서 신(神) 칠중 현시활동의 하위-영원적 개인성 통일로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0:7.1 (10.6) The Deity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is twofold as concerns eternity relationship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are eternal — are existential beings — while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are *actualizing* Deity personalities of the post-Havona epochs in the time-space and the time-space-transcended spheres of master universe evolutionary expansion. These actualizing Deity personalities are future eternals from the time when, and as, they power-personalize in the growing universes by the technique of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the associative-creative potentials of the eternal Paradise Deities.

0:7.2 (10.7) Deity is, therefore, dual in presence:

0:7.3 (10.8) 1. *Existential* — beings of eternal existence, past, present, and future.

0:7.4 (10.9) 2. *Experiential* — beings actualizing in the post-Havona present but of unending existence throughout all future eternity.

0:7.5 (10.10)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existential — existential in actuality (though all potentials are supposedly experiential).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are wholly experiential. The Deity Absolute is experiential in actualization but existential in potentiality. The essence of Deity is eternal, but only the three original persons of Deity are unqualifiedly eternal. All other Deity personalities have an origin, but they are eternal in destiny.

0:7.6 (10.11) Having achieved existential Deity expression of himself in the Son and the Spirit, the Father is now achieving experiential expression on hitherto impersonal and unrevealed deity levels as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but these experiential Deities are not now fully existent; they are in process of actualization.

0:7.7 (11.1) *God the Supreme* in Havona is the personal spirit reflection of the triune Paradise Deity. This associative Deity relationship is now creatively expanding outward in God the Sevenfold and is synthesizing in the experiential power of the Almighty Supreme in the grand universe. Paradise Deity, existential as three persons, is thus experientially evolving in two phases of Supremacy, while these dual phases are power-personality unifying as one Lord, the Supreme Being.

0:7.8 (11.2) The Universal Father achieves freewill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infinity and the fetters of eternity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threefold Deity personalization. The Supreme Being is even now evolving as a subeternal personality unification of the sevenfold manifestation of Deity

최극존재는, 그가 장엄자의 아버지임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창조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창조체-창조자 우주 활동의 합성적 조화-협동자이다. 최극존재는, 지금 진화적 우주들 안에서 실재화하고 있으며, 시간-공간 신성의, 시간과 공간의 최극 창조자와 체험적 관계적-연합에 있는 삼원적 파라다이스 신(神)의, 상관자이며 합성자이다. 최종적으로 실재화 되면, 이 진화적 신(神)은 유한과 무한의 영원한 융합-체험적 힘과 영 개인성의 영속하는 그리고 분해 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지도하는 자극을 받는 모든 시간-공간 유한 실체는, 초(超)창조체 달성의 아(亞)절대 차원들에 도달하려는 시도 위에서 뒤이어 오르는 목적과 끝을 향해, 파라다이스 실체의 다양한 위상들과의 관계적-연합 속에서, 유한 실체의 모든 위상과 가치의 계속-상승하는 동원과 완전해지는 통일(힘-개인성 합성)에 몰두하게 된다.

제 VIII 장. 칠중 하느님

지위에서의 유한성을 보상하고 그리고 개념에서의 창조체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우주 아버지는 진화하는 창조체의 신(神)을 향한 칠중(七重) 접근을 확립하였다:

1.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2. 옛적으로 늘 계신이.
3. 일곱 주(主) 영.
4. 최극존재.
5. 영 하느님.
6. 아들 하느님.
7. 아버지 하느님.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이 칠중 신(神) 개인성구현이 영(靈)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필사 사람이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최극존재 안에서 언젠가는 힘-개인성구현 될 유한한 시간-공간 창조체들에게, 이 칠중 신(神)은,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필사자인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기능적 신(神)이다. 하느님 실현이라는 그러한 체험적 발견-생애는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의 신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하고, 초우주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통하고,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 중 한 분 개인을 지나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개인성의 발견과 인식을 달성하는 데까지 상승한다.

in the time-space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0:7.9 (11.3) *The Supreme Being* is not a direct creator, except that he is the father of Majeston, but he is a synthetic co-ordinator of all creature-Creator universe activities. The Supreme Being, now actualizing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is the Deity correlator and synthesizer of time-space divinity, of triune Paradise Deity in experiential association with the Supreme Creators of time and space. When finally actualized, this evolutionary Deity will constitute the eternal fusion of the finite and the infinite — the everlasting and indissoluble union of experiential power and spirit personality.

0:7.10 (11.4) All time-space finite reality, under the directive urge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is engaged in an ever-ascending mobilization and perfecting unification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all phases and values of finite reality, in association with varied phases of Paradise reality, to the end and for the purpose of subsequently embarking upon the attempt to reach absonite levels of supercreature attainment.

VIII. GOD THE SEVENFOLD

0:8.1 (11.5) To atone for finity of status and to compensate for creature limitations of concept, the Universal Father has established the evolutionary creature's sevenfold approach to Deity:

- 0:8.2 (11.6) 1. The Paradise Creator Sons.
- 0:8.3 (11.7) 2. The Ancients of Days.
- 0:8.4 (11.8) 3. The Seven Master Spirits.
- 0:8.5 (11.9) 4. The Supreme Being.
- 0:8.6 (11.10) 5. God the Spirit.
- 0:8.7 (11.11) 6. God the Son.
- 0:8.8 (11.12) 7. God the Father.

0:8.9 (11.13) This sevenfold Deity personalization in time and space and to the seven superuniverses enables mortal man to attain the presence of God, who is spirit. This sevenfold Deity, to finite time-space creatures sometime power-personalizing in the Supreme Being, is the functional Deity of the mortal evolutionary creatures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Such an experiential discovery-career of the realization of God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divinity of the Creator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ascends through the superuniverse Ancients of Days and by way of the person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o the attainment of the discovery and recognition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대우주는 최극위 삼위일체, 칠중 하느님 그리고 최극존재의 삼중적 신(神)의 권역이다.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있는 잠재성이며, 그는 자신의 개인성과 영 속성을 그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는 지금 창조자 아들,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주(主) 영 안에서 실재화하고 있으며, 그는 시간과 공간의 초우주들에 대한 전능자로서의 그의 힘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낸다.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즉각적 하느님의 이 힘 현시 활동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시간-공간에서 진화한다. 비(非)개인적 활동들의 가치-차원에서 진화하는, 전능 최극자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은 하나의 실체—최극존재—이다.

칠중 하느님의 신(神) 관계적-연합 안에 있는 창조자 아들들이 제공하는 기능구조에 의해 필사자는 불멸이 되고 유한자가 무한자의 포용을 달성한다. 최극존재가 이들 모든 갖가지 활동행위의, 힘-개인성 동원, 신성한 합성을 위한 기법을 제공하며, 그리하여 유한자를 아(亞)절대에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한 미래 실재화구현들을 통하여 궁극자의 달성을 시도하게 한다. 창조자 아들과 그들의 연관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 이 최극 동원에 참여된다, 그러나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일곱 주(主) 영들은 아마 대우주 안에서 영구적인 관리행정자들로서 영원히 고정된 것 같다.

칠중 하느님의 기능은 일곱 초우주들의 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외부 공간의 창조계의 미래 진화와 관련되어 확대할 것이다. 진보해 나아가는 진화의 1차적, 2차적, 3차적, 그리고 4차적 공간 차원(次元)들의 이 미래 우주들의 조직은 신(神)에 도달하는 초월적이고 아(亞)절대적인 접근의 개시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제 IX 장. 궁극자 하느님

최극존재가 에워싸인 에너지와 개인성의 대우주 잠재성에서의 선행하는 신성 자질로부터 진보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에 따라 궁극자 하느님은 주(主)우주 의 초월된 시간-공간 권역들 안에 거하는 신성의 잠재성들로부터 결국 생겨난다. 궁극적 신(神)의 실재화구현은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아(亞)절대 통일을 알리고 그리고 창조적 자아-실현의 두 번째 차원 위에서 통합하는 신(神) 확대를 알려준다. 이것은, 초월된 시간-공간 가치들의 결국 생겨난 차원위에서, 파라다이스 아(亞)절대 실체의 우주 체험적-신(神) 실재화구현과 동등한 개인성-힘을 이룬다. 그러한 체험적 전개는, 최극존재의 완성된 실현을 통해 그리고 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에 의해 아(亞)절대 차원들을 달성해 온, 모든 시간-공간 창

0:8.10 (12.1) The grand universe is the threefold Deity domain of the Trinity of Supremacy, God the Sevenfold, and the Supreme Being. God the Supreme is potential in the Paradise Trinity, from whom he derives his personality and spirit attributes; but he is now actualizing in the Creator Sons, Ancients of Days, and the Master Spirits, from whom he derives his power as Almighty to the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is power manifestation of the immediate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actually time-space evolves concomitantly with them. The Almighty Supreme, evolving on the value-level of nonpersonal activities, and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are *one reality* — the Supreme Being.

0:8.11 (12.2) The Creator Sons in the Deity association of God the Sevenfold provide the mechanism whereby the mortal becomes immortal and the finite attains the embrace of the infinite. The Supreme Being provides the technique for the power-personality mobilization, the divine synthesis, of *all* these manifold transactions, thus enabling the finite to attain the absonite and, through other possible future actualizations, to attempt the attainment of the Ultimate. The Creator Sons and their associated Divine Ministers are participants in this supreme mobilization, but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probably eternally fixed as permanent administrators in the grand universe.

0:8.12 (12.3) The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dates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it will probably expand in connection with the future evolution of the creations of outer space. The organization of these future universes of the primary, secondary, tertiary, and quartan space levels of progressive evolution will undoubtedly witness the inauguration of the transcendent and absonite approach to Deity.

IX. GOD THE ULTIMATE

0:9.1 (12.4) Just as the Supreme Being progressively evolves from the antecedent divinity endowment of the encompassed grand universe potential of energy and personality, so does God the Ultimate eventuate from the potentials of divinity residing in the transcended time-space domains of the master universe. The actualization of Ultimate Deity signalizes absonite unification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and signifies unifying Deity expansion on the second level of creative self-realization. This constitutes the personality-power equivalent of the universe experiential-Deity actualization of Paradise absonite realities on the eventuating levels of transcended time-space values. The completion of such an experiential

조체들에게 궁극적 봉사-운명을 갖추어 이루도록 고안되어 있다.

궁극자 하느님은 아(亞)절대의 신성 차원들 위에서 그리고 초(超)시간과 초월공간의 우주 구체들 위에서 기능하는 개인적 신(神)을 가리킨다. 궁극자는 신(神)의 초(超)최극 결국 생겨남이다. 최극자는 유한 존재에게 이해되는 삼위일체 통일이다; 궁극자는 아(亞)절대 존재에게 이해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통일이다.

우주 아버지는, 진화적 신(神)이라는 기능구조를 통하여, 그들 각각의 우주 의미-차원 위에서, 유한한, 아(亞)절대적, 그리고 심지어 절대적인 신성한 실체의 가치의, 개인성의 초점화구현과 공동원화의, 그 엄청난고도 놀라운 활동에 실제로 종사되어 있다.

맨 처음 세분이자 과거-영원인 파라다이스 신(神)—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연관하는 진화적 신(神)들—최극자 하느님,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하느님—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의해 개인성-보완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체험적 우주들 안에서 진화하고 있는,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은 실존적이 아니다—과거 영원자가 아니고, 오직 미래 영원자, 시간-공간-제약된 그리고 또 초월성-제약된 영원자이다. 그들은 최극, 궁극, 그리고 아마도 최극-궁극 자질들을 가진 신(神)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 우주 기원을 체험해 왔다. 그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성 시작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신(神) 잠재성의 실재화구현들이지만, 그들 자신은 분별불가하게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제 X 장. 절대자 하느님

시간-공간 유한 마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신(神) 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의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자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 절대자 삼위일체의 통일의 귀결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체험적 실현, 절대 차원들에서의 절대 의미들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화된 절대자가 무한자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절대 가치들을 포함하는 것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 초(超)궁극 운명들은 절대 의미들과 무한한 영성(靈性) 두 가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 성취되지 않은 두 실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가치들을 성립시킬 수 없다.

unfoldment is designed to afford ultimate service-destiny for all time-space creatures who have attained absonite levels through the comple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nd by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0:9.2 (12.5) *God the Ultimate* is designative of personal Deity functioning on the divinity levels of the absonite and on the universe spheres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The Ultimate is a supersupreme eventuation of Deity. The Supreme is the Trinity unification comprehended by finite beings; the Ultimate is the unific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comprehended by absonite beings.

0:9.3 (13.1)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mechanism of evolutionary Deity, is actually engaged in the stupendous and amazing *act* of personality focalization and power mobilization, on their respective universe meaning-levels, of the divine reality values of the finite, the absonite, and even of the absolute.

0:9.4 (13.2) The first three and past-eternal Deities of Paradise —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are, in the eternal future, to be personality-complemented by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associate evolutionary Deities —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possibly God the Absolute.

0:9.5 (13.3) God the Supreme and God the Ultimate, now evolving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are not existential — not past eternal, only future eternal, time-space-conditioned and transcendental-conditioned eternal. They are Deities of supreme, ultimate, and possibly supreme-ultimate endowments, but they have experienced historic universe origins. They will never have an end, but they do have personality beginnings. They are indeed actualizations of eternal and infinite Deity potentials, but they themselves are neither unqualifiedly eternal nor infinite.

X. GOD THE ABSOLUTE

0:10.1 (13.4) There are many features of the eternal reality of the *Deity Absolute* which cannot be fully explained to the time-space finite mind, but the actu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would be in consequence of the unification of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the Absolute Trinity. This would constitute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absolute divinity, the unification of absolute meanings on absolute levels; but we are not certain regarding the encompassment of all absolute values since we have at no time been informed that the Qualified Absolute is the equivalent of the Infinite. Superultimate destinies are involved in absolute meanings and infinite spirituality, and without both

절대자 하느님은 모든 초(超)아(亞)절대 존재들의 실현-달성 목표이다, 그러나 신(神) 절대자의 힘과 개인성 잠재성은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며, 그리고 우리는 체험적 실재화구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체들을 논하기가 망설여진다.

제 XI 장. 세 절대자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병합된 생각이, 행동의 하느님 안에서 기능하면서, 신성한 것 그리고 중앙우주의 창조를 이루었을 때, 아버지는 무한 잠재성으로부터 자신의 하보나 현존을 구별 시킴으로써 그의 아들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 집행자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생각표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이들 무한 잠재성들은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 숨겨진 공간으로 남고, 그리고 신(神) 절대자 안에 신성하게 싸여 가려져 있으며, 한편으로 이 둘은 우주 절대자의 현재기능,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합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영 기세의 잠재력과 조화우주 기세의 잠재력 모두는, 모든 실체의 풍성함이 체험적 성장으로 그리고 우주 절대자에 의한 체험인 것과 실존적인 것의 상호-관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따라, 진보하는 계시-실현의 과정 중에 있다. 균형을 잡고 있는 우주 절대자의 현존 덕분에,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체험적 힘의 확장을 실현하고, 자신의 진화적 창조체들과의 정체화구현을 즐기며,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성의 차원위에서 체험적 신(神)의 확대를 성취한다.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를 각기 충분히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추측되는 그들의 병합된 기능 또는 조화-협동될 현존이 우주 절대자의 행동으로 지칭된다.

1. 신(神) 절대자는 만능이신 활동자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분별불가 절대자는 최극적으로 합일되고 궁극적으로 조화-협동되는 우주들의 우주의, 나아가 만들어졌거나 만드는 중이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것이-효과를 이루는 기능구조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신(神) 절대자는 어떤 우주 상황에 대해서든지, 하위-절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절대자의 모든 응답은, 실존(實在)의 현재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적 영원의 무한 가능성의 관점에서, 사물과 존재의 전체 창조의 복지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of these unachieved realities we cannot establish absolute values.

0:10.2 (13.5) God the Absolute is the realization-attainment goal of all superabsonite beings, but the power and personality potential of the Deity Absolute transcends our concept, and we hesitate to discuss those realities which are so far removed from experiential actualization.

XI. THE THREE ABSOLUTES

0:11.1 (13.6) When the combined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functioning in the God of Action, constituted the creation of the divine and central universe, the Father followed the expression of his thought into the word of his Son and the act of their Conjoint Executive by differentiating his Havona presence from the potentials of infinity. And these undisclosed infinity potentials remain space concealed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divinely enshrouded in the Deity Absolute, while these two become one in the functioning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 unrevealed infinity-unity of the Paradise Father.

0:11.2 (13.7) Both potency of cosmic force and potency of spirit force are in process of progressive revelation-realization as the enrichment of all reality is effected by experiential growth and through the correlation of the experiential with the existential by the Universal Absolute. By virtue of the equiposing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realizes extension of experiential power, enjoys identification with his evolutionary creatures, and achieves expansion of experiential Deity on the level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0:11.3 (14.1) When it is not possible fully to distinguish the Deity Absolute from the Unqualified Absolute, their supposedly combined function or co-ordinated presence is designated the action of the Universal Absolute.

0:11.4 (14.2) 1. *The Deity Absolute* seems to be the all-powerful activator, while the Unqualified Absolute appears to be the all-efficient mechanizer of the supremely unified and ultimately co-ordinated universe of universes, even universes upon universes, made, making, and yet to be made.

0:11.5 (14.3) The Deity Absolute cannot, or at least does not, react to any universe situation in a subabsolute manner. Every response of this Absolute to any given situation appears to be made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whole creation of things and beings, not only in its present state of existence, but also in view of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all future eternity.

신(神) 절대자는 전체, 우주 아버지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한 무한 실체로부터 분리된 잠재이며, 그리고 모든—실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신성 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잠재이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와 대비되는 본질특성을 갖춘 절대자이다; 그러나 우주 절대자는 모든 절대적 잠재를 에워싸는 것으로서 둘 모두에게 초(超)부가적이다.

2. 분별불가 절대자는 비(非)개인적이고 가외(加外)신성이며 비(非)신(神)화적이다. 그러므로 분별불가 절대자에게는 개인성과 신성 그리고 모든 창조자 특권들이 빠져있다. 사실이나 진리, 체험이나 계시, 철학이나 아(亞)절대성, 그 어떤 것도 우주 분별된-자격이 없는 이 절대자의 본성과 성격을 간파할 수 없다.

분별불가 절대자가 대우주에 널리 퍼지는, 그리고 분명하게 일곱 초우주들 넘어서 공간 영역들의 압도적 뻗어나감이 있는 기세 활동들과 전(前)물질적 진화들 속으로 나아가면서 동등한 공간 현존으로 확장하는 적극적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 분별불가 절대자는 무조건적이고도 분별불가한 보편성, 지배성 그리고 시원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궤변에서 나오는 추측에 입각한 철학적 개념의 단순한 소극론이 아니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무한에서의 적극적인 우주 전반적-통제이다; 이 전반적-통제는 무제한적 공간-기세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마음과 영과 개인성의 현존에 의해 분명하게 조건 갖춰지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의지-반응과 목적이 있는 명령에 의해 더욱 더 조건 갖춰진다.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가, 형이상학의 범신(汎神)개념이나 또는 한때 과학에서 있었던 에테르설과 견줄 수 있는 차별되지 않고 모든 것에—스며드는 영향력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무제한적 기세이며 그리고 조건 갖춰지는 신(神)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영 실체들과 이 절대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3. 우주 절대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바로는, 우주 실체들을 신(神)화된 그리고 비(非)신(神)화된—개인성구현 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성구현 될 수 없는—가치들로서 차별시키는 우주 아버지의 절대 자유의지 활동에 필연적이었다. 우주 절대자는 그렇게 우주 실체를 차별시키는 자유의지 활동에 의해 창조되어진 긴장의 해소됨을 가리키는 신(神) 현상이며, 실존적 잠재성들의 이들 전체 총합의 연관적인 조화-협동자로 기능한다.

우주 절대자의 긴장-현존은, 분별불가한 무한성의 정태성(靜態性)으로부터의 자유의지 신성의 동태성(動態性) 분리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신(神) 실체와 비(非)신(神)화된 실체 사이의 차이점이 조

0:11.6 (14.4) The Deity Absolute is that potential which was segregated from total, infinite reality by the freewill choi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within which all divinity activities —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 take place. This is the *Qualified* Absolute in contradistinction to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the Universal Absolute is superadditive to both in the encompassment of all absolute potential.

0:11.7 (14.5) 2.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npersonal, extradivine, and undeified. The Unqualified Absolute is therefore devoid of personality, divinity, and all creator prerogatives. Neither fact nor truth, experience nor revelation, philosophy nor absonity are able to penetrate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is Absolute without universe qualification.

0:11.8 (14.6) Let it be made clear that the Unqualified Absolute is a *positive reality* pervading the grand universe and, apparently, extending with equal space presence on out into the force activities and prematerial evolutions of the staggering stretches of the space regions beyond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t a mere negativism of philosophic concept predicated on the assumptions of metaphysical sophistries concerning the universality, dominance, and primacy of the unconditioned and the unqualified. The Unqualified Absolute is a positive universe overcontrol in infinity; this overcontrol is space-force unlimited but is definitely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life, mind, spirit, and personality, and is further conditioned by the will-reactions and purposeful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0:11.9 (14.7) We are convinced that the Unqualified Absolute is not an undifferentiated and all-pervading influence comparable either to the pantheistic concepts of metaphysics or to the sometime ether hypothesis of science. The Unqualified Absolute is force unlimited and Deity conditioned, but we do not fully perceive the relation of this Absolute to the spirit realities of the universes.

0:11.10 (14.8) 3. *The Universal Absolute*, we logically deduce, was inevitable in the Universal Father's absolute freewill act of differentiating universe realities into deified and undeified — personalizable and nonpersonalizable — values. The Universal Absolute is the Deity phenomenon indicative of the resolution of the tension created by the freewill act of thus differentiating universe reality, and functions as the associative co-ordinator of these sum totals of existential potentialities.

0:11.11 (15.1) The tension-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signifies the adjustment of differential between deity reality and undeified reality inherent in the separation of the dynamics of freewill divinity

절됨을 의미한다.

항상 기억하라: 잠재적 무한은 절대이고 영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시간 속에 있는 실제적 무한은 부분적이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非)절대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 개인성의 무한도 분별불가한 신(神)안에서 제외하면 절대일 수 없다. 그리고 우주 절대자를 영존화 시키고, 그리하여 시간 속에 유한 개인성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가능하고 공간 속에 물질적 우주들이 있는 것이 조화우주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 안에 있는 무한 잠재의 차이이다.

우주절대자의 연관적 현존이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실제 잠재와 실제 실재성, 파라다이스와 공간,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긴장을 그토록 완전하게 평형 시키고 있는 오직 그 때문에, 유한자는 무한자와 함께 조화우주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우주 절대자는 시간-공간 안에서 실존적이고, 초월된 시간-공간, 하위-무한 신(神) 현시활동의 우주들 안에서 실존적인, 진보하고 있는 진화적 실체의 지대에서의 정체화구현을 연관적으로 이룬다.

우주 절대자는 유한-절대적 가치들로서 그리고 체험적-실존적 접근의 가능성으로서 시간-영원 차원위에서 기능적으로 실현가능한 정태적-동태적 신(神)의 잠재다. 신(神)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양상은 정태적일 수 있고 잠재적일 수 있으며 연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主)우주 안에서 기능하는 지능 개인성들에 관한 한 체험적으로 창조적이거나 진화적이지 않다.

절대자. 두 절대자—분별화된 그리고 분별불가한 절대자—는 그들이 마음을 가진 창조체들에 의해 관찰되다시피,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다른 반면, 우주절대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합일되어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최종적 이해로는 셋 모두가 하나의 절대자이다. 하위-무한 차원들에는 그들이 기능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무한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이다.

우리는 절대자라는 용어를 어떤 것의 반대로 또는 어느 모든 것의 부정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 아버지를 자아-결정력을 가진, 일종의 범신주의적이고 미(未)개인적인 신(神)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절대자는, 우주 개인성에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 엄격하게 삼위일체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신(神)에 지배되어 있다.

제 XII 장. 삼위일체들

기원적이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적이고 필연적이었다. 시작이-결코 없는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속박 받지 않는 뜻에 의해 개인적인 것과 비(非)개인적인 것으로의 구별이라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었으며 그의 개

from the statics of unqualified infinity.

0:11.12 (15.2) Always remember: Potential infinity is absolute and inseparable from eternity. Actual infinity in time can never be anything but partial and must therefore be nonabsolute; neither can infinity of actual personality be absolute except in unqualified Deity. And it is the differential of infinity potential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Deity Absolute that eternalizes the Universal Absolute, thereby making it cosmically possible to have material universes in space and spiritually possible to have finite personalities in time.

0:11.13 (15.3) The finite can coexist in the cosmos along with the Infinite only because the associativ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so perfectly equalizes the tensions between time and eternity, finity and infinity, reality potential and reality actuality, Paradise and space, man and God. Associatively the Universal Absolute constitutes the identification of the zone of progressing evolutionary reality existent in the time-space, and in the transcended time-space, universes of subinfinite Deity manifestation.

0:11.14 (15.4) The Universal Absolute is the potential of the static-dynamic Deity functionally realizable on time-eternity levels as finite-absolute values and as possible of experiential-existential approach. This incomprehensible aspect of Deity may be static, potential, and associative but is not experientially creative or evolutionary as concerns the intelligent personalities now functioning in the master universe.

0:11.15 (15.5) *The Absolute.* The two Absolutes — qualified and unqualified — while so apparently divergent in function as they may be observed by mind creatures, are perfectly and divinely unified in and by the Universal Absolute. In the last analysis and in the final comprehension all three are one Absolute. On subinfinite levels they ar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but in infinity they are ONE.

0:11.16 (15.6) We never use the term the Absolute as a negation of aught or as a denial of anything. Neither do we regard the Universal Absolute as self-determinative, a sort of pantheistic and impersonal Deity. The Absolute, in all that pertains to universe personality, is strictly Trinity limited and Deity dominated.

XII. THE TRINITIES

0:12.1 (15.7) The original and eternal Paradise Trinity is existential and was inevitable. This never-beginning Trinity was inherent in the fact of the differentiation of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by the Father's unfettered will and factualized

인적 뜻이 마음에 의해 이들 이원적 실체를 조화-협동하였을 때 사실화 되었다. 하보나-이후 삼위일체들은 체험적이다—주(主)우주 안의 힘-개인성 현시활동의 하위-절대의 그리고 진화적인 두 차원들의 창조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神) 연합—은 실재성에서 실존적이지만 그러나, 모든 잠재들은 체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을 포용하는 유일한 신(神) 실체를 이루며, 그리하여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이라는 우주적 현상이 발생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들, 하보나-이후 삼위일체들은 무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과생된 신(神)들,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창조되거나 또는 결국 생겨난 실체들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의해 진화된 신(神)들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신성의 무한성은, 창조체와 창조자 체험의 유한성과 아(亞)절대성에 의해, 커지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강화되고 있다.

삼위일체들은 조화-협동 신(神) 현시활동의 관계와 사실들에 대한 진리이다. 삼위일체 기능은 신(神) 실체들을 에워싸고, 그리고 신(神) 실체들은 개인성구현으로 실현과 현시활동을 항상 추구한다. 그러므로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자 하느님도 신성한 필연성들이다. 이들 세 체험적 신(神)들은 실존적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잠재적이었지만, 그러나 힘의 개인성으로 그들의 우주 창발은, 힘과 개인성의 우주에서 그들 자신의 체험적 기능에 일부 의존하고 그리고 하보나-이후 창조자와 삼위일체들의 체험적 성취에 일부 의존한다.

하보나-이후의 두 삼위일체들,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현재 충분히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주 실현화의 과정에 있다. 이들 신(神) 관계적-연합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궁극자 삼위일체는, 현재 진화하고 있는, 결국에는 최극존재,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 그리고 창조자도 아니고 창조체도 아닌 그들 독특한 우주 계획자들인, 아(亞)절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궁극자 하느님은, 거의 한계가 없는 주(主)우주 의 확대하는 장(場)에서 이 체험적인 궁극자 삼위일체의 통일의 신(神) 귀결로서, 결국에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힘-구현하고 개인성구현할 것이다.

2. 절대자 삼위일체—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지금 실재화구현의 과정에 있는데,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료자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개인적 그리고 초(超)개인적 차원들 모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非)개인적 경계까지 기능하며, 그리고 또 우주보편성 안에서의 이의 통일은

when his personal will co-ordinated these dual realities by mind. The post-Havona Trinities are experiential — are inherent in the creation of two subabsolute and evolitional levels of power-personality manifestation in the master universe.

0:12.2 (15.8) *The Paradise Trinity* — the eternal Deity un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is existential in actuality, but all potentials are experiential. Therefore does this Trinity constitute the only Deity reality embracing infinity, and therefore do there occur the universe phenomena of the actualizat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0:12.3 (15.9) The first and second experiential Trinities, the post-Havona Trinities, cannot be infinite because they embrace *derived Deities*, Deities evolved by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realities created or eventuated by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Infinity of divinity is being ever enriched, if not enlarged, by finity and absonity of creature and Creator experience.

0:12.4 (16.1) Trinities are truths of relationship and facts of co-ordinate Deity manifestation. Trinity functions encompass Deity realities, and Deity realities always seek realization and manifestation in personalization.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even God the Absolute are therefore divine inevitabilities. These three experiential Deities were potential in the existential Trinity, the Paradise Trinity, but their universe emergence as personalities of power is dependent in part on their own experiential functioning in the universes of power and personality and in part on the experiential achievements of the post-Havona Creators and Trinities.

0:12.5 (16.2) The two post-Havona Trinities,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experiential Trinities, are not now fully manifest; they are in process of universe realization. These Deity association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0:12.6 (16.3) 1. *The Ultimate Trinity*, now evolving, will eventually consist of the Supreme Being,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and the absonit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ose unique universe planners who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God the Ultimate will eventually and inevitably powerize and personalize a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unification of this experiential Ultimate Trinity in the expanding arena of the well-nigh limitless master universe.

0:12.7 (16.4) 2. *The Absolute Trinity* —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 now in process of actualization, will consist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unrevealed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This Trinity functions on both personal and superpersonal levels, even to the borders of the nonpersonal, and

절대 신(神)을 체험적으로 만들 것이다.

궁극자 삼위일체는 완벽 안에서 체험적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 삼위일체의 그 어떤 충만한 통일의 가능성은 정말로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신(神) 삼위일체화가 성취할 수도 있다는, 항상-존재하는 하나의 기억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극-궁극자의 언젠가의 출현과 그리고 가능한 절대자 하느님의 삼위일체화구현-사실화를 가정하고 있다.

우주의 철학자들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실존적-체험적 삼위일체 무한을 가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개인성구현을 마음속에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스스로이신 이에 대한 개념적 차원에서의 우주 아버지의 개인과 동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기원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잠재적으로 무한한데 이는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말

완전한 중앙우주와 둘레를 돌고 있는 일곱 초우주에 대한 의도된 설명과 함께, 우주 아버지의 성격과 그의 파라다이스 연관-동료들의 본성에 대한 묘사와 관련되는 계속되는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진리와 그리고 조화-협동되는 필수지식을 밝히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서, 제시되는 주제들에 적합한 가장 높은 존재하는 인간개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는 초우주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안내를 받고 있다. 우리는 제시되는 개념이, 이전에 인간 마음으로 적절히 표현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오직 순수한 계시(啓示)에 의존할 것이다.

대대로 연속되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행성에서의 계시들은, 영적가치에 대한 가장 높은 존재하는 개념을 새롭고도 증진된 행성지식에 대한 조화-협동의 일부분으로서 변함없이 기꺼이 포용한다. 따라서 하느님과 그의 우주 연관-동료들에 관한 이 계시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가치와 우주 의미를 갖는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앞선 행성지식을 대표하는 1,000개 이상의 인간개념을 이 글들의 기초로 선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로부터 모은 이러한 인간개념들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계시하라고 지도받은 대로, 진리를 묘사하기에 불충분할 때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실체와 신성 그리고 그들의 초월적인 거주 우주에 대한 우리 자신이 가진 우월한 지식을 사용하여,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보완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임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필사자 마음의 유한 개념들의 언어 상징으

its unification in universality would experientialize Absolute Deity.

0:12.8 (16.5) The Ultimate Trinity is experientially unifying in completion, but we truly doubt the possibility of such full unification of the Absolute Trinity. Our concept, however, of the eternal Paradise Trinity is an ever-present reminder that Deity trinitization may accomplish what is otherwise nonattainable; hence do we postulate the sometime appearance of the *Supreme-Ultimate* and the possible trinitization-factu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0:12.9 (16.6)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s postulate a *Trinity of Trinities*, an existential-experiential Trinity Infinite, but they are not able to envisage its personalization; possibly it would equvalate to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on the conceptual level of the I AM. But irrespective of all this, the original Paradise Trinity is potentially infinite since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is infinite.

0:12.10 (16.7) Acknowledgment

0:12.11 (16.8) In formulating the succeeding presentations having to do with the portrayal of th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nature of his Paradise associates, together with an attempted description of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and the encircling seven superuniverses, we are to be guided by the mandate of the superuniverse rulers which directs that we shall, in all our efforts to reveal truth and co-ordinate essential knowledge, give preference to the highest existing human concepts pertaining to the subjects to be presented. We may resort to pure revelation only when the concept of presentation has had no adequate previous expression by the human mind.

0:12.12 (17.1) Successive planetary revelations of divine truth invariably embrace the highest existing concepts of spiritual values as a part of the new and enhanced co-ordination of planetary knowledge. Accordingly, in making these presentations about God and his universe associates, we have selected as the basis of these papers more than one thousand human concepts representing the highest and most advanced planetary knowledge of spiritual values and universe meanings. Wherein these human concepts, assembled from the God-knowing mortal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inadequate to portray the truth as we are directed to reveal it, we will unhesitatingly supplement them, for this purpose drawing upon our own superior knowledge of the reality and divinity of the Paradise Deities and their transcendent residential universe.

0:12.13 (17.2) We are fully cognizant of the difficulties of our assignment; we recognize the impossibility

로 신성과 영원의 개념에 대한 언어를, 충분히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는 인간 마음속에 하느님의 단편이 거주하고 있
음을, 그리고 진리의 영이 인간의 혼과 함께 머물
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영 기
체들이 물질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가치의 실
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주 의미들
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
음을 더욱 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확실하게 우리는, 신성한 현존인 이들 영이,
개인적 종교 체험—하느님을-의식함—의
계속-진보하는 실체의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진리에 대한 영적 충당에 있어서, 사람을 도
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우주들의 우주에
관한 진리를 유란시아에 묘사하도록 배정된
초우주 개인성 무리단의 우두머리인 오르본
톤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기록되었음]

of fully translating the language of the concepts
of divinity and eternity into the symbols of the
language of the finite concepts of the mortal mind.
But we know that there dwells within the human
mind a fragment of God, and that there sojourns
with the human soul the Spirit of Truth; and we
further know that these spirit forces conspire to
enable material man to grasp the reality of spiritual
values and to comprehend the philosophy of
universe meanings. But even more certainly we
know that these spirits of the Divine Presence are
able to assist man in the spiritual appropriation of
all truth contributory to the enhancement of the
ever-progressing reality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 God-consciousness.

0:12.14 (17.3) [Indited by an Orvonton Divine
Counselor, Chief of the Corps of Superuniverse
Personalities assigned to portray on Urantia the
truth concerning the Paradise Deities and the
universe of universes.]

유랜시아 책

부 1.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 편 우주 아버지

⇨ 000

유랜시아 책

002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 편 우주 아버지

색션

소개

제 1 장. 아버지의 이름

제 2 장. 하느님의 실체

제 3 장. 하느님은 우주의 영

제 4 장. 하느님의 신비

제 5 장.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제 6 장. 우주의 개인성

제 7 장. 개인성 개념의 영적 가치

PAPER 1

THE UNIVERSAL FATHE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ather's Name

2. The Reality of God

3. God is a Universal Spirit

4. The Mystery of God

5.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6. Personality in the Universe

7. Spiritual Value of the Personality
Concept

소개

우주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시며, 모든 사물과 존재의 첫째근원이며 중심이다. 우선 하느님을 창조자로서, 다음에는 통제자로서, 그리고 맨 나중에는 무한한 유지자로서 생각하라. 예언자가 “하느님, 당신은 홀로 계시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늘들의 하늘을 그곳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창조하셨으며; 이들을 보존하고 통제하십니다. 우주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자는 빛으로 옷처럼 자신을 두르고 있으며 휘장처럼 하늘들을 펼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주 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인류에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오직 우주 아버지의 개념—많은 하느님들 대신에 한 하느님—만이 필사자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자와 무한한 통제자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무수한 행성 체계들은 모두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지능(知能)창조체들, 하느님을 알 수 있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보답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거주되도록 만들어졌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느님의 작품이며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하느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빛으셨으며; 그가 우주를 세우셨고

INTRODUCTION

1:0.1 (21.1) THE Universal Father is the God of all creatio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all things and beings. First think of God as a creator, then as a controller, and lastly as an infinite upholder. The truth about the Universal Father had begun to dawn upon mankind when the prophet said: “You, God, are alone; there is none beside you. You have created the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s; you preserve and control them. By the Sons of God were the universes made. The Creator covers him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and stretches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Only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 one God in the place of many gods — enabled mortal man to comprehend the Father as divine creator and infinite controller.

1:0.2 (21.2) The myriads of planetary systems were all made to be eventually inhabited by many different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beings who could know God, receive the divine affection, and love him in return.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the work of God and the dwelling place of his diverse creature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formed the earth; he established the universe and created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거주되도록 그것을 빚으셨다.”

깨우친 세계들 모두는 모든 창조의 영원한 조물주이며 무한한 유지자인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한다. 우주 위의 우주마다 모든 의지 창조체들은 길고 긴 파라다이스로의 여행, 아버지 하느님께 도달하는 영원한 모험인 황홀한 투쟁을 시작했다. 시간의 자녀들의 초월적 목표는 영원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신성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하느님을-아는 창조체들은 오직 한 가지 최극의 열망, 온몸을 불태우는 욕망 하나를 갖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구체들에 있어서도, 그가 그의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으로 그리고 그의 의로운 최극위(最極位)의 우주 구체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 같이 되어가는 것이다. 영원에 거하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최극의 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 하라.” 파라다이스의 메신저들은 사랑과 자비로써 이 간곡하고도 신성한 권유를 여러 세대에 걸쳐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러 우주를 거쳐 바깥쪽으로, 심지어는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과 같은 하등의 동물-기원 창조체에게까지 전해 왔다.

신성의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라는 이 장엄하고도 우주적인 명령은 완전성의 하느님의 모든 투쟁하는 창조체 창조의 첫 번째 의무이자 최고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는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영적 진보의 최종적이고도 확실한 운명이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무한적 감각에서 볼 때 완전해지기를 도저히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존재들에게는, 이 행성에서 그들이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무한한 하느님이 필사 사람을 위해 마련한 숭고하고도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운명을 성취할 때, 자아-실현과 마음 달성에 속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 하느님 자신이 그의 무한하고 영원한 구체에서 그러하듯이 신성한 완전성인 그들의 구체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완전성은, 물질적 감각에서는 보편적도 아니고, 지적인 파악에서 무제한적이거나, 혹은 영적 체험에서 최종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진 신성, 개인성 동기부여의 완전성, 하느님-의식의 모든 유한한 측면에 있어서는 최종적이며 완벽하다.

이것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 하라.”라는, 신성한 명령의 진정한 의미로, 이는 필사 사람이 더욱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가치와 진정한 우주 의미들을 달성하도록 하는 길고도 황홀한 투쟁에서 앞으로 나가도록 계속 촉구하고 그리고 그를 안쪽으로 손짓하여 부른다. 우주들의 하느님을 찾기 위한 이 숭고한 탐구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모든 세계들의 거주자들의 최극의 모험이다.

this world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1:0.3 (21.3) The enlightened worlds all recognize and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maker and infinite upholder of all creation. The will creatures of universe upon universe have embarked upon the long, long Paradise journey, the fascinating struggle of the eternal adventure of attaining God the Father. The transcendent goal of the children of time is to find the eternal God, to comprehend the divine nature, to recognize the Universal Father. God-knowing creatures have only one supreme ambition, just one consuming desire, and that is to become, as they are in their spheres, like him as he is in his Paradise perfection of personality and in his universal sphere of righteous supremacy. From the Universal Father who inhabits eternity there has gone forth the supreme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In love and mercy the messengers of Paradise have carried this divine exhortation down through the ages and out through the universes, even to such lowly animal-origin creatures as the human races of Urantia.

1:0.4 (22.1) This magnificent and universal injunction to strive for the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divinity is the first duty, and should be the highest ambition, of all the struggling creature creation of the God of perfection. This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divine perfection is the final and certain destiny of all man's eternal spiritual progress.

1:0.5 (21.2) Urantia mortals can hardly hope to be perfect in the infinite sense, but it is entirely possible for human beings, starting out as they do on this planet, to attain the supernal and divine goal which the infinite God has set for mortal man; and when they do achieve this destiny, they will, in all that pertains to self-realization and mind attainment, be just as replete in their sphere of divine perfection as God himself is in his sphere of infinity and eternity. Such perfection may not be universal in the material sense, unlimited in intellectual grasp, or final in spiritual experience, but it is final and complete in all finite aspects of divinity of will, perfection of personality motivation, and God-consciousness.

1:0.6 (22.3) This is the true meaning of that divine command,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which ever urges mortal man onward and beckons him inward in that long and fascinating struggle for the attainment of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piritual values and true universe meanings. This sublime search for the God of universes is the supreme adventure of the inhabitants of all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제 1 장. 아버지의 이름

우주들에 두루 알려진 아버지 하느님의 이름들 중, 그를 첫째근원이며 우주 중심이라고 칭하는 이름들이 가장 자주 발견된다. 첫째 아버지는 다른 우주들에서 그리고 같은 우주의 다른 구역들에서 다양한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창조체가 창조자에게 부여한 이름들은 창조체의 창조자에 대한 개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첫째근원이며 우주 중심은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단지 본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이 창조자의 자녀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를 결국에는 아버지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본성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성장한다.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지능적 의지창조체에게 독단적 인식, 형식적 경배, 또는 노예 같은 봉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강요한 적이 없다.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있는 진화하는 거주자들은—그들 스스로의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와서—그를 인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경배하여야 한다. 창조자는 그의 물질적 창조체들의 영적 자유의지의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기를 거부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인간 의지의 애정 어린 전념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다; 사실상, 창조체의 그러한 봉헌은 사람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주는 유일하게 가능한 참된 가치의 선물을 이룰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존재한다; 아버지의 뜻에 머물어 것들기 위한 이러한 선택을 제외하고 하느님에게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우주들의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에 의해 내려진 그러한 결정들은, 창조자 아버지의 사랑에-지배된 본성에게 아주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 진정한 경배의 실체를 이룬다.

너희가 장엄한 창조자를 실제로 알아내고, 신성한 통제자의 내주하는 현존의 실현을 체험하기 시작한 후에, 너희가 진실로 하느님-의식적이 되면, 그러면 너희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너희는 첫 번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우주 아버지 에 대한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세계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우주들에서, 창조자는 무수한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관계성의 영적 면에서는 모든 이름이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 그의 창조체의 가슴에 자리 잡은 그의 보좌의 정도와 깊이를 말과 상징 안에서 알 수 있다.

우주들의 우주의 중심 가까이에서는, 우주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첫째근원의 의미로 여길 수 있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주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는

1. THE FATHER'S NAME

1:1.1 (22.4) Of all the names by which God the Father is known throughout the universes, those which designate him as the First Source and the Universe Center are most often encountered. The First Father is known by various names in different universes and in different sectors of the same universe. The names which the creature assigns to the Creator are much dependent on the creature's concept of the Creator. The First Source and Universe Center has never revealed himself by name, only by nature. If we believe that we are the children of this Creator, it is only natural that we should eventually call him Father. But this is the name of our own choosing, and it grows out of the recognition of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2 (22.5) The Universal Father never imposes any form of arbitrary recognition, formal worship, or slavish service upon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e evolutionary inhabitants of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must of themselves — in their own hearts — recognize, love, and voluntarily worship him. The Creator refuses to coerce or compel the submission of the spiritual free wills of his material creatures. The affectionate dedication of the human will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is man's choicest gift to God; in fact, such a consecration of creature will constitutes man's only possible gift of true value to the Paradise Father. In God, man lives, moves, and has his being; there is nothing which man can give to God except this choosing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and such decisions, effected by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constitute the reality of that true worship which is so satisfying to the love-dominated nature of the Creator Father.

1:1.3 (22.6) When you have once become truly God-conscious, after you really discover the majestic Creator and begin to experience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presence of the divine controller, then, in accordance with your enlighten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nner and method by which the divine Sons reveal God, you will find a name for the Universal Father which will be adequately expressive of your concept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so, on different worlds and in various universes, the Creator becomes known by numerous appellations, in spirit of relationship all meaning the same but, in words and symbols, each name standing for the degree, the depth, of his enthronement in the hearts of his creatures of any given realm.

1:1.4 (23.1) Near the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is generally known by names which may be regarded as meaning the First Source. Farther out in the universes of

우주 중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별들의 창조 속으로 더 멀리 밖으로 나가면, 너희의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가 첫째 창조자 근원이며 신성한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이 있는 한 별자리에서 하느님은 우주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유지자로, 그리고 동쪽에서는 신성한 통제자로 불리고 있다. 그는 또한 빛들의 아버지, 생명의 선물, 만능이신 분으로도 명명되어 왔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세계들에서는, 하느님이 일반적으로, 개인적 관계, 부드러운 애정, 아버지로서의 헌신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의 별자리 본부에서는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서 너희의 행성 체계 안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서는 그는 아버지들의 아버지,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보나 아버지, 그리고 영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의 계시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된 자들은, 창조체-창조자 관계적-연합의 감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서적인 호소에 결국에는 승복하여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性)적 창조체들이 사는 행성에서는, 지능 존재들의 가슴속에 부모 정서에 대한 충동들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세계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영원한 하느님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 그는 너희의 행성, 유란시아에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의의(意義) 깊은 것은 너희가 그를 알아야 하고 그처럼 되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옛 예언자들은 진심으로 그를 “영속(永續)하는 하느님”이라 불렀으며 그를 “영원 속에 거(居)하는 자”로 묘사하였다.

제 2 장. 하느님의 실체

하느님은 영 세계의 최초 실체이다; 하느님은 마음 구체들 안에서 진리의 근원이다; 물질적 영역들에 두루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모든 창조된 지능존재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하나의 개인성이고, 우주들의 우주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영원한 실체의 첫째 근원이며 중심이다. 하느님은 사람 같지도 기계 같지도 않으시다. 첫째 아버지는 우주의 영이고, 영원한 진리이며, 무한한 실체이고, 아버지 개인성이다.

영원한 하느님은 이상화된 실체 또는 우주 개인성구현보다 더욱 무한하다. 하느님은 단순히 사람의 최극의 욕망, 필사자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단지 정의(正義)의 힘-잠재적이라는, 어떤 개념도 아니다. 우주 아버지는 자연계에 대한 동의어가 아닐 뿐 아니라, 개인화된 자연 법칙도 아니다. 하느님은 초월적 실체이지, 단순한 최극 가치에서의 사람의 전통적 개념이 아니다. 하느님은 영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초점화구현이 아니며, “사람의 가장 고귀한 작

space, the terms employed to designate the Universal Father more often mean the Universal Center. Still farther out in the starry creation, he is known, as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your local universe, as the First Creative Source and Divine Center. In one near-by constellation God is called the Father of Universes. In another, the Infinite Upholder, and to the east, the Divine Controller. He has also been designated the Father of Lights, the Gift of Life, and the All-powerful One.

1:1.5 (23.2) On those worlds where a Paradise Son has lived a bestowal life, God is generally known by some name indicative of personal relationship, tender affection, and fatherly devotion. On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God is referred to as the Universal Father, and on different planets in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he is variously known as the Father of Fathers, the Paradise Father, the Havona Father, and the Spirit Father. Those who know God through the revelations of th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eventually yield to the sentimental appeal of the touching relationship of the creature-Creator association and refer to God as “our Father.”

1:1.6 (23.3) On a planet of sex creatures, in a world where the impulses of parental emotion are inherent in the hearts of its intelligent beings, the term Father becomes a very expressive and appropriate name for the eternal God. He is best known, most universally acknowledged, on your planet, Urantia, by the name *God*. The name he is given is of little importance; the significant thing is that you should know him and aspire to be like him. Your prophets of old truly called him “the everlasting God” and referred to him as the one who “inhabits eternity.”

2. THE REALITY OF GOD

1:2.1 (23.4) God is primal reality in the spirit world; God is the source of truth in the mind spheres; God overshadows all throughout the material realms. To all created intelligences God is a personality, and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he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eternal reality. God is neither manlike nor machinelike. The First Father is universal spirit, eternal truth, infinite reality, and father personality.

1:2.2 (23.5) The eternal God is infinitely more than reality idealized or the universe personalized. God is not simply the supreme desire of man, the mortal quest objectified. Neither is God merely a concept, the power-potential of righteousness.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 synonym for nature, neither is he natural law personified. God is a transcendent reality, not merely man's traditional concept of supreme values. God is not a psychological focalization of spiritual meanings,

품”도 아니다. 하느님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개념들 중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지상에서 영적 평화를 누리고, 죽음에서 개인성의 생존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는 개인이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다.

하느님의 실존(實在)의 실재성은 사람의 필사자 마음속에서 살며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생존되는 불멸 혼의 진화를 도와주도록 파라다이스로부터 보내진 영 감시자의 신성한 현존의 내주를 통한 인간의 체험 속에서 실증된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신성한 조절자의 현존은 세 가지 체험적 현상에 의하여 드러낸다:

1. 하느님을 아는 지적 수용능력—하느님-의식.
2. 하느님을 찾으려는 영적 욕구—하느님을-추구하는 것.
3. 하느님처럼 되고자 갈망하는 개인성—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을 다한 욕망.

하느님의 실존은 과학적 실험이나 논리적 추론의 순수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하느님은 오직 인간 체험의 영역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실체에 대한 참된 개념은 논리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고, 철학에 대해서 찬동할 만한 것이며, 종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개인성 생존의 그 어떤 소망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현존한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이렇게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체험 속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실존에 대한 긍정적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인간 존재가 다른 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실존은 인간 마음에서의 하느님-의식과, 우주 아버지로부터 거처주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어 있고 필사자 지성 안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서의 하느님-현존 간의 접촉을 통해서만 실증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너희가 하느님을 창조자로 생각할 수 있고, 그는 파라다이스와 완전성의 중앙 우주를 몸소 창조하신 이다,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모두 창조자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집단에 의하여 창조되고 조직된다. 우주 아버지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몸소 창조자가 아니며; 너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의 아들 미가엘의 창조다. 비록 진화하는 우주들을 아버지가 몸소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들 우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일정한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을 통한 현시활동 속에서 그는 그들을 통제한다. 아버지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우주의 개인적 창조자이며, 영원한 아들과 관계적-연합하여, 다른 모든 개인적 우주의 창조자들의 창조자이다.

물질적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물리통제자로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점의

neither is he “the noblest work of man.” God may be any or all of these concepts in the minds of men, but he is more. He is a saving person and a loving Father to all who enjoy spiritual peace on earth, and who crave to experience personality survival in death.

1:2.3 (24.1) The actuality of the existence of God is demonstrated in human experience by the indwelling of the divine presence, the spirit Monitor sent from Paradise to live in the mortal mind of man and there to assist in evolving the immortal soul of eternal survival. The presence of this divine Adjuster in the human mind is disclosed by three experiential phenomena:

- 1:2.4 (24.2) 1. The intellectual capacity for knowing God — God-consciousness.
- 1:2.5 (24.3) 2. The spiritual urge to find God — God-seeking.
- 1:2.6 (24.4) 3. The personality craving to be like God — the wholehearted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1:2.7 (24.5) The existence of God can never be proved by scientific experiment or by the pure reason of logical deduction. God can be realized only in the realms of human experience; nevertheless, the true concept of the reality of God is reasonable to logic, plausible to philosophy, essential to religion, and indispensable to any hope of personality survival.

1:2.8 (24.6) Those who know God have experienced the fact of his presence; such God-knowing mortals hold in their personal experience the only positive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living God which one human being can offer to another. The existence of God is utterly beyond all possibility of demonstration except for the contact between the God-consciousness of the human mind and the God-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 that indwells the mortal intellect and is bestowed upon man as the free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1:2.9 (24.7) In theory you may think of God as the Creator, and he is the personal creator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perfection, b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all created and organized by the Paradise corps of the Creator Sons. The Universal Father is not the personal creator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e universe in which you live is the creation of his Son Michael. Though the Father does not personally create the evolutionary universes, he does control them in many of their universal relationships and in certain of their manifestations of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energies. God the Father is the personal creator of the Paradise universe and, in association with the Eternal Son, the creator of all other personal universe Creators.

1:2.10 (24.8) As a physical controller in the material universe of universes, the First Source and

원형틀들 안에서 기능하며, 그리고 이 절대 중력 중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느님은 중앙우주와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물리적 차원의 조화우주적 전반적-통제를 균등하게 행사한다. 마음으로, 하느님은 무한한 영의 신(神) 안에서 기능하며; 영으로서, 하느님은 영원한 아들의 개인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자녀들의 개인 안에서 현시된다. 이러한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파라다이스의 조화-협동 개인들과 절대자들과의 상호관계는, 모든 창조에 두루 그리고 그에 대상되는 모든 차원에 걸친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인적 활동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의 단편화된 영의 현존을 통하여, 창조자 아버지는 그의 창조체 자녀들과의 그리고 그가 창조한 우주들과의 즉각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제 3 장. 하느님은 우주의 영

“하느님은 영이다.” 그는 한 우주의 영적 현존이다. 우주 아버지는 한 무한한 영적 실체이다; 그는 “주권자이며, 영원하고, 불멸적인, 불가시적인, 그리고 유일하게 참된 하느님이다. 비록 너희가 “하느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그의 영원한 현존이 머무르는 중심으로부터 보내진 신비의 감시자가 내주된다고—불린다고 해서 형태와 모습에서 아버지가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 존재들은 비록 그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옛 선지자는 “보라, 그가 내 앞에서 걸어가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또한 그가 지나가도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일들을 지켜보고, 그의 장엄한 행위에 대한 물질적 증거들에 대하여 고도로 의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의 가시적 현시활동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며, 심지어는 인간 속에 내주하는 파견된 그의 영의 현존을 쳐다볼 수도 없다.

우주 아버지는 물질적 장애들과 제한된 영적 자질들을 가진 저급한 창조체들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다음과 같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어떠한 필사자도 나를 보고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어떤 사람도 영 하느님을 쳐다보고서는 그의 필사 실존을 보존할 수 없다. 신성한 개인성현존의 영광과 영적 찬란함은,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의 집단이나 또는 어떤 계층의 물질적 개인성들도 접근할 수 없다.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의 영적 광채는 “어떠한 필사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물질적 창조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빛이다.” 그러나 영성화(靈性化)된 마음의 신앙-시각으로 그를 식별하기 위해 육신 계층의 눈으로 하느님을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Center functions in the patterns of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and through this absolute gravity center the eternal God exercises cosmic overcontrol of the physical level equally in the central universe and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mind, God functions in the Deity of the Infinite Spirit; as spirit, God is manifest in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and in the persons of the divine children of the Eternal Son. This interrela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ith the co-ordinate Persons and Absolutes of Paradise does not in the least preclude the *direct* personal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out all creation and on all levels thereof. Through the presence of his fragmentized spirit the Creator Father maintains immediate contact with his creature children and his created universes.

3. GOD IS A UNIVERSAL SPIRIT

1:3.1 (25.1) “God is spirit.” He is a universal spiritual presence. The Universal Father is an infinite spiritual reality; he is “the sovereign, eternal, immortal, invisible, and only true God.” Even though you are “the offspring of God,” you ought not to think that the Father is like yourselves in form and physique because you are said to be created “in his image” — indwelt by Mystery Monitor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abode of his eternal presence. Spirit beings are real, notwithstanding they are invisible to human eyes; even though they have not flesh and blood.

1:3.2 (25.2) Said the seer of old: “Lo, he goes by me, and I see him not; he passes on also, but I perceive him not.” We may constantly observe the works of God, we may be highly conscious of the material evidences of his majestic conduct, but rarely may we gaze upon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his divinity, not even to behold the presence of his delegated spirit of human indwelling.

1:3.3 (25.3) The Universal Father is not invisible because he is hiding himself away from the lowly creatures of materialistic handicaps and limited spiritual endowments. The situation rather is: “You cannot see my face, for no mortal can see me and live.” No material man could behold the spirit God and preserve his mortal existence. The glory and the spiritual brilliance of the divine personality presence is impossible of approach by the lower groups of spirit beings or by any order of material personalities.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Father’s personal presence is a “light which no mortal man can approach; which no material creature has seen or can see.” But it is not necessary to see God with the eyes of the flesh in order to discern him by the faith-vision of the spiritualized mind.

우주 아버지의 영 본성은 그의 공존하는 자아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의 공동 개인성 조화-협동자인 무한한 영과 우주적이고도 영원한 영을 충만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유한다. 하느님의 영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절대적이다; 아들 안에서 그것은 분별불가하며, 영 안에서 우주적이며, 그들 모두 안에서 그리고 그들 모두에 의하여 무한하다.

하느님은 우주적인 영이다; 하느님은 우주적인 개인이다. 유한 창조의 최극 개인적 실체는 영이다; 개인적 조화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아(亞)절대 영이다. 오로지 무한 차원들만이 절대적이며, 그런 차원들에서만 물질, 마음, 그리고 영 사이에 하나가 되는 최종이 있다.

우주들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은 잠재적으로 물질, 마음, 영에 대한 전반적-통제자이다. 하느님은 오직 그의 멀리-퍼지는 개인성 순환회로에 의해서만, 의지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그의 광대한 창조의 개인성들과 직접 관계를 맺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밖에서는) 오직 그의 단편화된 실존개체들의 현존 안에서, 우주들 안에 널리 퍼진 하느님의 뜻으로만 접촉이 가능하다. 시간 속의 필사자들의 마음속에 깃들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창조체의 불멸의 혼의 진화를 육성시키는 이 파라다이스 영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하는 창조체의 마음은, 지역우주들 안에서 기원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창조체의 선택의 필연적 결과인 영적 달성이라는 그 체험적 변환을 성취함으로써 신성한 완전성을 얻어야만 한다.

사람의 내적 체험 속에서, 마음은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 물질적으로-연계된 이러한 마음은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할 수 없다. 생존의 기법은 인간 의지의 그러한 조절들 안에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식 지성이 점차적으로 영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에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필사자 마음 안에서의 그 변환들 속에 포용되어 있다. 물질관계적-연합으로부터 영 연합을 향한 인간 마음의 이 진화하는 필사 마음의 잠재적인 영 위상을 불멸의 혼인 모론시아 실체들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질에 종속된 필사자 마음은 점점 더 물질적으로 되는 운명에 있고 결국에는 개인성의 소멸을 당한다; 영에 종속되는 마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는 운명에 있고, 궁극적으로 생존시키고 인도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 됨을 성취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성 실존의 생존과 영원을 달성하게 되어 있다.

나는 영원자로부터 왔고, 우주 아버지가 현존하는 곳에 반복하여 되돌아갔었다. 나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영원하고 우주적인 아버지의 실재성과 개인성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하느님이 절대이고 영원하며 그리고 무한하며 또한 그는 선하며 신성하며 그리고 자비하다는 것을 안다.

1:3.4 (25.4) The spirit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is shared fully with his coexistent sel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Both the Father and the Son in like manner share the universal and eternal spirit fully and unreservedly with their conjoint personality co-ordinate, the Infinite Spirit. God's spirit is, in and of himself, absolute; in the Son it is unqualified, in the Spirit, universal, and in and by all of them, infinite.

1:3.5 (25.5) God is a universal spirit; God is the universal person. The supreme personal reality of the finite creation is spirit; the ultimate reality of the personal cosmos is absolute spirit. Only the levels of infinity are absolute, and only on such levels is there finality of oneness between matter, mind, and spirit.

1:3.6 (25.6) In the universes God the Father is, in potential, the overcontroller of matter, mind, and spirit. Only by means of his far-flung personality circuit does God deal directly with the personalities of his vast creation of will creatures, but he is contactable (outside of Paradise) only in the presences of his fragmented entities, the will of God abroad in the universes. This Paradise spirit that indwells the minds of the mortals of time and there fosters the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of the surviving creature is of the nature and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 minds of such evolutionary creatures originate in the local universes and must gain divine perfection by achieving those experiential transformations of spiritual attainment which are the inevitable result of a creature's choosing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7 (26.1) In the inner experience of man, mind is joined to matter. Such material-linked minds cannot survive mortal death. The technique of survival is embraced in those adjustments of the human will and those transformations in the mortal mind whereby such a God-conscious intellect gradually becomes spirit taught and eventually spirit led. This evolution of the human mind from matter association to spirit union results in the transmutation of the potentially spirit phases of the mortal mind into the morontia realities of the immortal soul. Mortal mind subservient to matter is destined to become increasingly material and consequently to suffer eventual personality extinction; mind yielded to spirit is destined to become increasingly spiritual and ultimately to achieve oneness with the surviving and guiding divine spirit and in this way to attain survival and eternity of personality existence.

1:3.8 (26.2) I come forth from the Eternal, and I have repeatedly returned to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 know of the actuality and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I know that, while the great God is absolute, eternal, and infinite, he

나는 위대한 선언들의 진리를 알고 있다: “하느님은 영”이고 “하느님은 사랑”이며, 이 두 속성들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우주에 가장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

is also good, divine, and gracious. I know the truth of the great declarations: “God is spirit” and “God is love,” and these two attributes are most completely revealed to the universe in the Eternal Son.

제 4 장.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완전성의 무한성이 그렇게 그를 영원히 신비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불가해한 모든 신비들 중 가장 큰 것은 필사 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내주(內住) 현상이다. 우주 아버지가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머무는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들 중 가장 심오한 것이다; 사람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현존은 신비들 중의 신비이다.

필사자들의 물질 육체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비록 주권자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의 거주세계 창조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 자신에게 이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식의 “문”에 서서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는 “자신들의 가슴의 문을 여는” 모든 이에게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지라도; 창조자 아들들과 그들의 필사 창조체들 사이에 이 친밀한 개인적 교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실제로 내주하는,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온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몸은 하느님의 성전인 것이다.

너희가 여기 아래에서 끝이 날 때, 땅에서 일시적 형태로 너희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육신으로서의 시험 여행이 완결되어질 때, 필사자 장막을 이루는 티끌이 “원래 유래되었던 땅으로 되돌아갈” 때; 그때에 내주하는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느님의 한 단편(斷片), 신성의 한 부분이며 조각이 이 행성의 각각의 도덕적 존재 안에 머무른다. 그것은 소유로는 아직 너희들 것이 아니지만, 만일 너희가 필사 실존에서 생존된다면 너희와 하나가 되도록 고안하여 의도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이 신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무한한 선, 끝없는 자비, 비할 데 없는 지혜, 숭고한 성격의 끝없는 진리의 장관(壯觀)이 더욱 더 펼쳐지고 있음에 당혹하고 있다.

신성한 신비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시간-공간 창조체와 우주 창조자 사이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사람의 불완전함과 파라다이스 신(神)의 완전함 사이에 존재하는 선천적 차이에 들어 있다. 우주적 사랑의 하느님은 신성한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의 본질특성들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창조체의 수용능력의 충만함에 닿은 데까지 그의 모든 각 창조체에게 어김없이 자신을 현시한다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우주에 속한 모든 구체와 각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 존재와 필사

4. THE MYSTERY OF GOD

1:4.1 (26.3) The infinity of the perfection of God is such that it eternally constitutes him mystery. And the greatest of all the unfathomable mysteries of God is the phenomenon of the divine indwelling of mortal minds. The manner in which the Universal Father sojourns with the creatures of time is the most profound of all universe mysteries; the divine presence in the mind of man is the mystery of mysteries.

1:4.2 (26.4) The physical bodies of mortals are “the temples of God.” Notwithstanding that the Sovereign Creator Sons come near the creatures of their inhabited worlds and “draw all men to themselves”; though they “stand at the door” of consciousness “and knock” and delight to come in to all who will “open the doors of their hearts”; although there does exist this intimate personal communion between the Creator Sons and their mortal creatures, nevertheless, mortal men have something from God himself which actually dwells within them; their bodies are the temples thereof.

1:4.3 (26.5) When you are through down here, when your course has been run in temporary form on earth, when your trial trip in the flesh is finished, when the dust that composes the mortal tabernacle “returns to the earth whence it came”; then, it is revealed, the indwelling “Spirit shall return to God who gave it.” There sojourns within each mortal being of this planet a fragment of God, a part and parcel of divinity. It is not yet yours by right of possession, but it is designedly intended to be one with you if you survive the mortal existence.

1:4.4 (26.6) We are constantly confronted with this mystery of God; we are nonplused by the increasing unfolding of the endless panorama of the truth of his infinite goodness, endless mercy, matchless wisdom, and superb character.

1:4.5 (26.7) The divine mystery consists in the inherent difference which exists between the finite and the infinite,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the time-space creature and the Universal Creator,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imperfection of man and the perfection of Paradise Deity. The God of universal love unfailingly manifests himself to every one of his creatures up to the fullness of that creature's capacity to spiritually grasp the qualities of divine truth, beauty, and goodness.

1:4.6 (27.1) To every spirit being and to every mortal creature in every sphere and on every world of the

창조체들에게, 그러한 영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필사 창조체들에 의해 식별되고 이해될 수 있는 자신의 자비롭고 신성한 자아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느님은 개인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느 자녀가 어느 주어진 시기에 느끼는 신성한 현존은, 초(超)물질 세계의 영 실체성들을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체의 수용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인간의 영적 체험 안에 있는 실체로서의 하느님은 신비가 아니다. 그러나 영 세계의 실체들을 물질적 계층에 속하는 물리적 마음들에게 쉽게 설명을 시도할 때 신비가 나타나는데: 이 신비는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하느님을-아는 필사자의 신앙-파악으로서만 유한으로 무한을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영원한 하느님을 식별하는 철학적 기적을 성취할 수 있다.

제 5 장.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하느님의 위대하심, 그의 무한성으로, 그의 개인성을 흐리게 하거나 빛을 잃게 하지 말라. “귀를 계획하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실 수 있겠는가? 눈을 지으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는가?” 우주 아버지는 신성한 개인성의 극치이다; 모든 창조에 두루 개인성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하느님은 무한하시며 동시에 개인적이다; 그는 무한한 개인성이다. 아버지는, 비록 그의 개인 무한성이 그를 모든 물질적이고 유한한 존재들의 충분한 이해를 넘어서 언제까지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한 개인성이다.

하느님은 인간 마음으로 납득되는 개인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개인성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그는 초(超)개인성에 대한 어떤 가능한 개념보다도 더더욱 그 이상이다. 아무튼 존재의 실체에 대한 최대 개념이 개인성의 관념과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 창조체의 마음들과 더불어, 신성한 개인성의 그러한 불가해한 개념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헛된 일이다. 우주 창조자에 대하여 물질적 창조체에게 최고 가능한 개념은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드높여진 관념의 영적 이상들 안에 포용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느님은 개인성에서의 인간의 개념보다 훨씬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똑같이 우주 아버지가 영원하고, 무한하며, 진실하고, 선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개인성 이하의 그 어떤 것도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하느님은 자신의 어떤 창조체에게도 숨지 않고 있다. 존재들의 그 많은 계층들이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가 “물질적 어떤 창조체들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개인성의 광대함과 장엄함은 진화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reveals all of his gracious and divine self that can be discerned or comprehended by such spirit beings and by such mortal creature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either spiritual or material. The divine presence which any child of the universe enjoys at any given moment is limited only by the capacity of such a creature to receive and to discern the spirit actualities of the supermaterial world.

1:4.7 (27.2) As a reality in human spiritual experience God is not a mystery. But when an attempt is made to make plain the realities of the spirit world to the physical minds of the material order, mystery appears: mysteries so subtle and so profound that only the faith-grasp of the God-knowing mortal can achieve the philosophic miracle of the recognition of the Infinite by the finite, the discernment of the eternal God by the evolving mortals of the material worlds of time and space.

5.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5.1 (27.3) Do not permit the magnitude of God, his infinity, either to obscure or eclipse his personality. “He who planned the ear, shall he not hear? He who formed the eye, shall he not see?” The Universal Father is the acme of divine personality; he is the origin and destiny of personality throughout all creation. God is both infinite and personal; he is an infinite personality. The Father is truly a personality, notwithstanding that the infinity of his person places him forever beyond the full comprehension of material and finite beings.

1:5.2 (27.4) God is much more than a personality as personality is understood by the human mind; he is even far more than any possible concept of a superpersonality. But it is utterly futile to discuss such incomprehensible concepts of divine personality with the minds of material creatures whose maximum concept of the reality of being consists in the idea and ideal of personality. The material creature's highest possible concept of the Universal Creator is embraced within the spiritual ideals of the exalted idea of divine personality. Therefore, although you may know that God must be much more than the human conception of personality, you equally well know that the Universal Father cannot possibly be anything less than an eternal, infinite, true, good, and beautiful personality.

1:5.3 (27.5) God is not hiding from any of his creatures. He is unapproachable to so many orders of beings only because he “dwells in a light which no material creature can approach.” The immensity and grandeur of the divine personality is

하는 필사자들의 미(未)완전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손바닥으로 바다를 가늠하고, 손 뺨으로 우주를 가늠한다. 지구 순환계 위에 앉아있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고 이것을 거할 우주로 확장시킨다," "네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세계들을 순서에 따라 있게 하고, 저희 모두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분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로 일부 납득된다."는 말이 사실이다. 오늘날, 너희의 있는 그대로, 너희는 그의 각가지 그리고 다양한 창조를 통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및 그들의 수많은 종속들의 계시와 직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조물주를 식별하여야 한다.

비록 물질적 필사자들이 하느님의 개인을 볼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은 그가 한 개인임을 확신하면서 기쁨을 향유해야 한다; 우주 아버지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급의 거주자들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묘사하는 그 진리를;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을 신앙에 의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느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사랑이시며 무한한 창조자 개인성을 이루는 초인간적이고 신성한 속성들 중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

지역 창조계에 있어서 (초우주들의 성원들을 제외하고) 하느님은 지역 우주들의 주권자들인 동시에 거주하는 자들의 세계의 아버지들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이외에는 개인적 또는 거주적 형태로서 현시활동하지 않는다. 만일 창조체의 신앙이 완전하다면, 그는 창조자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이미 우주 아버지를 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아들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 사람은 완벽한 영 변환과 그리고 실재적 파라다이스 달성을 성취할 때까지는 결코 하느님을 볼 수 없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들 속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 본성을 갖는 우주 절대적의 분별불가한 잠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들 속에 모든 면에서 신성하게 현존하고 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이다. 미가엘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완전한 개인성들이고, 빛나는 새벽별에서부터 아래로는 진행되고 있는 동물 진화의 가장 낮은 인간 창조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우주 개인성의 원형들이기도 하다.

하느님이 없이는 그리고 그의 위대하고 중심적인 개인이 없었더라면, 이 광대한 우주들 중의 우주에 두루, 어떠한 개인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개인성이다.

하느님이 영원한 힘, 장엄한 현존, 초월적 이상, 영광스러운 영(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그리고 영속

beyond the grasp of the unperfected mind of evolutionary mortals. He "measures the waters in the hollow of his hand, measures a universe with the span of his hand. It is he who sits on the circle of the earth,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s them out as a universe to dwell in." "Lift up your eyes on high and behold who has created all these things, who brings out their worlds by number and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and so it is true that "the invisible things of God are partially understood by the things which are made." Today, and as you are, you must discern the invisible Maker through his manifold and diverse creation, as well as through the revelation and ministration of his Sons and their numerous subordinates.

1:5.4 (28.1) Even though material mortals cannot see the person of God, they should rejoice in the assurance that he is a person; by faith accept the truth which portrays that the Universal Father so loved the world as to provide for the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of its lowly inhabitants; that he "delights in his children." God is lacking in none of those superhuman and divine attributes which constitute a perfect, eternal, loving, and infinite Creator personality.

1:5.5 (28.2) In the local creations (excepting the personnel of the superuniverses) God has no personal or residential manifestation aside from the Paradise Creator Sons who are the fathers of the inhabited worlds and the sovereigns of the local universes. If the faith of the creature were perfect, he would assuredly know that when he had seen a Creator Son he had seen the Universal Father; in seeking for the Father, he would not ask nor expect to see other than the Son. Mortal man simply cannot see God until he achieves completed spirit transformation and actually attains Paradise.

1:5.6 (28.3) The natures of the Paradise Creator Sons do not encompass all the unqualified potentials of the universal absoluteness of the infinite nature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but the Universal Father is in every way *divinely* present in the Creator Sons. The Father and his Sons are one. These Paradise Sons of the order of Michael are perfect personalities, even the pattern for all local universe personality from that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down to the lowest human creature of progressing animal evolution.

1:5.7 (28.4) Without God and except for his great and central person, there would be no personality throughout all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God is personality.*

1:5.8 (28.5) Notwithstanding that God is an eternal power, a majestic presence, a transcendent ideal, and a glorious spirit, though he is all these and infinitely more, nonetheless, he is truly and

적으로 완전한 창조자 개인성,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개인,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인간들이 알려져 온 것처럼, 하느님의 친구로서 너희는 알려질 수 있다. 그는 실제 영이며 영적 실제이다.

우리가 우주에 두루 드러난 우주 아버지를 볼 때; 우리가 그의 수많은 창조체들 속에 내주하는 그를 식별할 때; 우리가 그의 주권자 아들들의 개인들 속에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까이서 멀리서, 여기저기에서 그의 신성한 현존을 계속 감지할 때, 그의 개인성의 시원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라. 멀리 퍼지는 이 모든 분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한 참 개인으로 남아 있으며,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는 해아릴 수 없는 그의 창조체들의 무리들과 개인적 관계를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대한 관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인류가 알게 된 하느님에 대한 확대되고 더욱 진실한 개념이다. 이성, 지혜, 종교적 체험 등이 모두 하느님의 개인성을 암시하고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합하여 이것을 타당하게 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내주하고 있는 조절자도 전(前)개인적이다. 어떤 종교든지 그 진리와 성숙도는 하느님의 무한한 개인성에 대한 그 개념과 신(神)의 절대 합일체에 대한 그 파악에 직접 비례한다. 따라서 개인적 신(神)에 대한 관념은, 종교가 하느님의 합일체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이후 종교적 성숙의 척도가 된다.

원시종교는 많은 개인적 하느님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계시(啓示)는, 첫째 원인의 과학적 설정 안에서 단지 가능하고, 그리고 우주 합일체의 철학적 관념 안에서는 오직 일시적으로만 제시되어지는, 하느님에 대한 개인성 개념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어떤 개인이라 해도 오직 개인성 접근에 의해서만 하느님의 합일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을 부인하면 결국 물질주의나 범신주의나 라는 두 철학적 딜레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神)을 깊이 사색할 때, 개인성 개념은 유형론(有形論)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물질적 신체는 사람이나 하느님의 개인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이 유형론의 잘못은 인간 철학의 양극단에서 나타나 있다. 물질주의에서는, 사람이 죽음에 따라 육체를 잃어버려, 그는 하나의 개인성으로의 존재하기가 끝나며; 범신주의에서는 하느님은 육체가 없으므로, 따라서 그는 개인이 아니다. 진보하는 개인성의 초인간적 전형은 마음과 영의 연합 안에서 기능한다.

개인성이란 단순히 하느님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화-협동된 무한한 본성과, 그리고 완전한 표현의 영원성과 우주적 보편성으로 전시되는 그러한 신성한 의지와 그의 전체성을 상징한다. 최극의 의미에서 개인성이란 우주

everlastingly a perfect Creator personality, a person who can “know and be known,” who can “love and be loved,” and one who can befriend us; while you can be known, as other humans have been known, as the friend of God. He is a real spirit and a spiritual reality.

1:5.9 (28.6) As we see the Universal Father revealed throughout his universe; as we discern him indwelling his myriads of creatures; as we behold him in the persons of his Sovereign Sons; as we continue to sense his divine presence here and there, near and afar, let us not doubt nor question his personality primacy. Notwithstanding all these far-flung distributions, he remains a true person and everlastingly maintains personal connection with the countless hosts of his creatures scattered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0 (28.7) The idea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s an enlarged and truer concept of God which has come to mankind chiefly through revelation. Reason, wisdom, and religious experience all infer and imply the personality of God, but they do not altogether validate it. Ev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s prepersonal. The truth and maturity of any relig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its concept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God and to its grasp of the absolute unity of Deity. The idea of a personal Deity becomes, then, the measure of religious maturity after religion has first formulated the concept of the unity of God.

1:5.11 (29.1) Primitive religion had many personal gods, and they were fashioned in the image of man. Revelation affirms the validity of the personality concept of God which is merely possible in the scientific postulate of a First Cause and is only provisionally suggested in the philosophic idea of Universal Unity. Only by personality approach can any person begin to comprehend the unity of God. To deny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leaves one only the choice of two philosophic dilemmas: materialism or pantheism.

1:5.12 (29.2) In the contemplation of Deity, the concept of personality must be divested of the idea of corporeality. A material body is not indispensable to personality in either man or God. The corporeality error is shown in both extremes of human philosophy. In materialism, since man loses his body at death, he ceases to exist as a personality; in pantheism, since God has no body, he is not, therefore, a person. The superhuman type of progressing personality functions in a union of mind and spirit.

1:5.13 (29.3) Personality is not simply an attribute of God; it rather stands for the totality of the coordinated infinite nature and the unified divine will which is exhibited in eternity and universality of perfect expression. Personality, in the supreme

들의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이다.

하느님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지식이 자라거나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느님은 유한한 사람이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체험을 획득하지도 않지만, 그는 자신의 영원한 개인성의 영역 안에서 무단히 자아-실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즐기는데, 이것은 계속 진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새로운 체험을 쌓아 가는 것과 유사하며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교될 수도 있다.

넓은 우주 안에서 신성한 도움에 의해 영적으로 완전한 높은 세계로 오르려고 모색하는 불완전한 모든 혼의 개인성 투쟁에 우주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한한 하느님의 절대적 완전성은 그로 하여금 완전함의 분별불가한 최종이라는 극심한 한계에 부딪쳐 고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영적 존재와 모든 필사 창조체의 이러한 점진적 체험은, 끝없는 자아-실현의 끝없는 신성한 순환에서의 아버지의 계속-확대하는 신-의식의 일부이다.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고,” “너희가 승리하는 모든 경우에 그도 너희 속에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라는 말들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의 전(前)개인적인 신성한 영은 너희의 실제적인 일부분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물질적 형태변형에 응답한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의 모든 영 충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 행위자는 팽창하는 조화 우주에 대한 마음 표현 모두를 함유하고 있다. 우주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전체 진화 창조의 모든 실존개체, 존재, 개인성의 상승하는 영들 그리고 확대하는 마음들의 점진적 투쟁이라는 개별적 체험 전체를 신성한 의식의 충만 속에서 깨달아 실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이다.

제 6 장. 우주의 개인성

인간의 개인성은 신성한 창조자 개인성에 의해 투영된 시간-공간 형상-그림자이다. 그리고 어떤 실재성도 그것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게 이해될 수 없다. 그림자는 참된 실체에 의해 해석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은 과학에 있어서는 원인, 철학에 있어서는 관념, 종교에 있어서는 개인, 나아가 사랑 넘치는 하늘아버지이다. 하느님은 과학자에게는 시원적 기제, 철학자에게는 합일체의 가설, 종교인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부적절한 개념은 우주에서 사람의 영적 진보를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들이 드디어 파라다이스에

sense, is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4 (29.4) God, being eternal, universal, absolute, and infinite, does not grow in knowledge nor increase in wisdom. God does not acquire experience, as finite man might conjecture or comprehend, but he does, within the realms of his own eternal personality, enjoy those continuous expansions of self-realization which are in certain ways comparable to, and analogous with, the acquirement of new experience by the finit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1:5.15 (29.5) The absolute perfection of the infinite God would cause him to suffer the awful limitations of unqualified finality of perfectness were it not a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personality struggle of every imperfect soul in the wide universe who seeks, by divine aid, to ascend to the spiritually perfect worlds on high. This progressive experience of every spirit being and every mortal creature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 part of the Father's ever-expanding Deity-consciousness of the never-ending divine circle of ceaseless self-realization.

1:5.16 (29.6) It is literally true: “In all your afflictions he is afflicted.” “In all your triumphs he triumphs in and with you.” His prepersonal divine spirit is a real part of you. The Isle of Paradise responds to all the physical metamorphos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Eternal Son includes all the spirit impulses of all creation; the Conjoint Actor encompasses all the mind expression of the expanding cosmos. The Universal Father realizes in the fullness of the divine consciousness all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progressive struggles of the expanding minds and the ascending spirits of every entity, being, and personality of the whole evolutionary creation of time and space. And all this is literally true, for “in Him we all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6. PERSONALITY IN THE UNIVERSE

1:6.1 (29.7) Human personality is the time-space image-shadow cast by the divine Creator personality. And no actuality can ever be adequately comprehended by an examination of its shadow. Shadows should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true substance.

1:6.2 (30.1) God is to science a cause, to philosophy an idea, to religion a person, even the loving heavenly Father. God is to the scientist a primal force, to the philosopher a hypothesis of unity, to the religionist a living spiritual experience. Man's inadequat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can be improved only by man's spiritual progress in the universe and will become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신성한 포옹에 도달하였을 때에만 진정으로 적절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성에 대한 정반대 관점들을 결코 놓치지 마라. 사람은 유한에서 무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성을 이해하며; 하느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바라보신다. 사람은 가장 낮은 유형의 개인성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최고자, 더 나아가 최극이며, 궁극이며 절대인 개인성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더 나은 개념들은, 인간의 개인성에 대한 향상된 관념, 특히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의 유란시아 증여 삶 속에서의 인간 및 신성한 개인성의 증진된 계시, 그 출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했다.

필사 마음 속에 내주하는 전(前)개인적인 신성한 영은, 바로 그 현존 속에서, 그것의 실재적 실존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다만 진정한 개인적 종교 체험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인간적이든 신성하든, 그 개인의 외부적 반응 또는 물질적 현존과 매우 다르게 이해되고 알려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도덕적 유사성과 영적 조화는 두 개인들 사이의 친구 관계에 필수적이다; 사랑 넘치는 개인성은 사랑이 없는 개인에게 결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신성한 개인성을 아는 것에 다가가는 것조차, 모든 사람의 개인성 자질들이 온통 그 노력에 바쳐져야만 한다; 건성으로 하는, 어중간한 헌신은 소용없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더 완벽하게 납득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개인성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는 기원 개인성에 대해 더욱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하느님을-아는 그러한 인간은 더욱 더 진지하게 기원 개인성처럼 되려고 분투할 것이다. 하느님에 관한 의견들에 대하여 너희가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그리고 그의 속에서의 체험은 모든 인간적 논란과 단순한 지적 논리를 넘어서 그 위에 존재한다. 하느님을-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을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교화(敎化)와 상호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영적 체험을 묘사한다.

우주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주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인성으로 관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들이 인간적이든 초인간적이든, 다른 마음 현상들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사람의 개인성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는 신성한 마음과 실재적 개인성이 숨겨져 있다.

하느님은 영-영 개인성-이다; 사람도 역시 영-잠재적인 영 개인성-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 체험 속에서 영 개인성의 이 잠재적인 것의 충만한 실현을 달성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의 삶은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사람

truly adequate only when the pilgrims of time and space finally attain the divine embrace of the living God on Paradise.

1:6.3 (30.2) Never lose sight of the antipodal viewpoints of personality as it is conceived by God and man. Man views and comprehends personality, looking from the finite to the infinite; God looks from the infinite to the finite. Man possesses the lowest type of personality; God, the highest, even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Therefore did the better concepts of the divine personality have patiently to await the appearance of improved ideas of human personality, especially the enhanced revelation of both human and divine personality in the Urantian bestowal life of Michael, the Creator Son.

1:6.4 (30.3) The prepersonal divine spirit which indwells the mortal mind carries, in its very presence, the valid proof of its actual existence, but the concept of the divine personality can be grasped only by the spiritual insight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Any person, human or divine, may be known and comprehended quite apart from the external reactions or the material presence of that person.

1:6.5 (30.4) Some degree of moral affinity and spiritual harmony is essential to friendship between two persons; a loving personality can hardly reveal himself to a loveless person. Even to approach the knowing of a divine personality, all of man's personality endowments must be wholly consecrated to the effort; halfhearted, partial devotion will be unavailing.

1:6.6 (30.5) The more completely man understands himself and appreciates the personality values of his fellows, the more he will crave to know the Original Personality, and the more earnestly such a God-knowing human will strive to become like the Original Personality. You can argue over opinions about God, but experience with him and in him exists above and beyond all human controversy and mere intellectual logic. The God-knowing man describes his spiritual experiences, not to convince unbelievers, but for the edification and mutual satisfaction of believers.

1:6.7 (30.6) To assume that the universe can be known, that it is intelligible, is to assume that the universe is mind made and personality managed. Man's mind can only perceive the mind phenomena of other minds, be they human or superhuman. If man's personality can experience the universe, there is a divine mind and an actual personality somewhere concealed in that universe.

1:6.8 (30.7) God is spirit — spirit personality; man is also a spirit — potential spirit personality. Jesus of Nazareth attained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otential of spirit personality in human experience; therefore his life of achieving the Father's will

의 가장 실제적이고 이상적인 계시가 되고 있다. 비록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이 오직 실제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 땅의 삶을 통해, 한 진정한 인간 체험 속에서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실현과 계시의 완전한 실증에서 우리는 영감을 얻는다.

제 7 장. 개인성 개념의 영적 가치

예수가 “살아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신(神)-하늘에 계신 아버지—을 의미한 것이었다. 신(神)의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동료관계를 촉진시키며; 그것은 지능적 경배를 장려한다; 그것은 참신한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상호작용은 비(非)개인적인 사물들 사이에도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동료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동료관계 관계도 양측이 개인들이 아니라면 결코 누릴 수 없다. 비록 이 개인적 교제가 바로 그 생각 조절자와 같은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의 현존에 의해 크게 촉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직 개인성들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사람은, 한 방울의 물이 대양과 합일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과 연합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점진적 상호보답적인 영적 교제에 의해, 개인적 하느님과의 개인성 상호교감에 의해, 그리고 신성한 뜻과의 충심어리고 지능적인 순응을 통해 점점 더 신성한 본성에 도달함으로써 신성한 연합을 달성한다. 이러한 숭고한 관계는 오로지 개인성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진리에 관한 개념은 개인성과는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고, 미(美)에 관한 개념은 개인성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신성한 선(善)의 개념은 오직 개인성에 대한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개인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다. 미와 진리조차도 그것이 사랑 넘치는 아버지, 개인적인 하느님의 속성들이 아니라면 생존 소망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이 가장 시원적이고 변함없으며 만능이시며 완전하면서도, 동시에 계속-변화하고, 분명히 법칙에 제한되는, 상대적 불완전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우주에 둘러 싸여 있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 모두의 계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의 정체성과 의지의 합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 논리, 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점차적으로 순응하는 각자의 체험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과학 또는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조차도 하느님 개인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의 개인적 체험만이 하느님의 개인성의 실제적인 영적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becomes man's most real and ideal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Even though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can be grasped only in actual religious experience, in Jesus' earth life we are inspired by the perfect demonstration of such a realization and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a truly human experience.

7. SPIRITUAL VALUE OF THE PERSONALITY CONCEPT

1:7.1 (31.1) When Jesus talked about “the living God,” he referred to a personal Deity — the Father in heaven.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Deity facilitates fellowship; it favors intelligent worship; it promotes refreshing trustfulness. Interactions can be had between nonpersonal things, but not fellowship. The fellowship relation of father and son, as between God and man, cannot be enjoyed unless both are persons. Only personalities can commune with each other, albeit this personal communion may be greatly facilitated by the presence of just such an impersonal entity as the Thought Adjuster.

1:7.2 (31.2) Man does not achieve union with God as a drop of water might find unity with the ocean. Man attains divine union by progressive reciprocal spiritual communion, by personality intercourse with the personal God, by increasingly attaining the divine nature through wholehearted and intelligent conformity to the divine will. Such a sublime relationship can exist only between personalities.

1:7.3 (31.3) The concept of truth might possibly be entertained apart from personality, the concept of beauty may exist without personality, but the concept of divine goodness is understandable only in relation to personality. Only a *person* can love and be loved. Even beauty and truth would be divorced from survival hope if they were not attributes of a personal God, a loving Father.

1:7.4 (31.4) We cannot fully understand how God can be primal, changeless, all-powerful, and perfect, and at the same time be surrounded by an ever-changing and apparently law-limited universe, an evolving universe of relative imperfections. But we can *know* such a truth in our own personal experience since we all maintain identity of personality and unity of will in spite of the constant changing of both ourselves and our environment.

1:7.5 (31.5) Ultimate universe reality cannot be grasped by mathematics, logic, or philosophy, only by personal experience in progressive conformity to the divine will of a personal God. Neither science, philosophy, nor theology can validate the personality of God. Only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faith sons of the heavenly Father can effect

우주 개인성의 상급 개념들은: 정체성, 자아-의식, 자아-의지, 그리고 자아-게시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나아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성 관계적-연합 안에서 존재하듯이 것처럼, 다르거나 동등한 개인성들과의 동료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연합의 절대적 합일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신성(神性)은 불가분성, 합일체로 알려진다. “주님 하느님은 하나이다.” 개인성의 불가분성은 하느님이 필사 사람의 가슴속에서 살도록 그의 영을 중여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개인성 불가분성이 필사 아들과 딸들을 낳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합일체의 개념과 관련된 이 불가분성 개념은 신(神) 궁극위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모두 초월됨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은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마음,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영을 분별불가하게 초월하는 그 무한자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한 사실은 결코 신성한 합일체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신(神)의 세 개인성들은 모든 우주 실체 반응들과 모든 창조체 관계들에 있어서, 하나로 실존한다. 영원한 이 세 개인들도 신(神)의 불가분성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우주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필사 마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이 모든 일들은 파라다이스 존재들인 나의 집단에 속한 높은 개인성들에게조차도 전적으로 뚜렷하지는 않다. 파라다이스로 오랜 필사자 오름이 계속되는 신(新)시대를 거치면서 너희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영성화 됨에 따라 신(神)과 관련된 이 심오한 진리들이 점점 뚜렷해 질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

[네바돈 지역우주의 영역을 넘는 관련사들을 다루어야 하는 이 다가오는 계시의 일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일곱 번째 초우주 본부인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배정된 천상의 개인성 무리단의 한 일원인,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계시되었음. 나는 하느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 글을 후원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왜냐하면 거주하는 어떤 세계든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가능한 정보의 최고 근원을 내가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곱 초우주들 모두에서 신성한 조연자로 일해 왔었고, 오랫동안 모든 사물들의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거주해 왔다. 나는 우주 아버지의 즉각적인 개인적 현존 안에서 머무는 최극의 기쁨을 여러 번 누려왔다. 나는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묘사한다;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the actual spiritual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1:7.6 (31.6) The higher concepts of universe personality imply: identity, self-consciousness, self-will, and possibility for self-revelation. And these characteristics further imply fellowship with other and equal personalities, such as exists in the personality associations of the Paradise Deities. And the absolute unity of these associations is so perfect that divinity becomes known by indivisibility, by oneness. “The Lord God is *one*.” Indivisibility of personality does not interfere with God’s bestowing his spirit to live in the hearts of mortal men. Indivisibility of a human father’s personality does not prevent the reproduction of mortal sons and daughters.

1:7.7 (31.7) This concept of indivisibility in association with the concept of unity implies transcendence of both time and space by the Ultimacy of Deity; therefore neither space nor time can be absolute or infinit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at infinity who unqualifiedly transcends all mind, all matter, and all spirit.

1:7.8 (31.8) The fact of the Paradise Trinity in no manner violates the truth of the divine unity. The three personalities of Paradise Deity are, in all universe reality reactions and in all creature relations, as one. Neither does the existence of these three eternal persons violate the truth of the indivisibility of Deity. I am fully aware that I have at my command no language adequate to make clear to the mortal mind how these universe problems appear to us. But you should not become discouraged; not all of these things are wholly clear to even the high personalities belonging to my group of Paradise beings. Ever bear in mind that these profound truths pertaining to Deity will increasingly clarify as your minds become progressively spiritualized during the successive epochs of the long mortal ascent to Paradise.

1:7.9 (32.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a member of a group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signed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o supervise those portions of this forthcoming revelation which have to do with affairs beyond the borders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 am commissioned to sponsor those papers portraying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God because I represent the highest source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such a purpose on any inhabited world. I have served as a Divine Counselor in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and have long resided at the Paradise center of all things. Many times have I enjoyed the supreme pleasure of a sojourn in the immediat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 portray the reality and truth of the Father’s nature and attributes with

unchallengeable authority; I know whereof I
speak.]

제 2 편 하느님의 본성

⇨ 001

유랜시아 책

003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 편 하느님의 본성

섹션

소개

제 1 장. 하느님의 무한성

제 2 장.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제 3 장. 공의(公義)와 정의(正義)

제 4 장. 신성한 자비

제 5 장. 하느님의 사랑

제 6 장. 하느님의 선행

제 7 장.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PAPER 2

THE NATURE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Infinity of God

2. The Father's Eternal Perfection

3. Justice and Righteousness

4. The Divine Mercy

5. The Love of God

6. The Goodness of God

7. Divine Truth and Beauty

소개

하느님에 대하여 사람의 가능한 가장 높은 개념이, 하나의 시원적이고도 무한한 개인성에 대한 인간의 관념과 이상 속에 포용되므로 그만큼, 신(神)의 성격을 구성하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특징들을 공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나아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하느님의 본성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그의 다양한 가르침들 속에서 그리고 그의 장엄한 필사 삶에서 펼쳐 보였던 아버지에 대한 계시로 가장 잘 납득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사람이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리러 본다면 신성한 본성은 사람에게 의하여 더욱 잘 납득될 수 있다.

하느님의 본성은 최극 관념들의 계시 속에서 공부될 수 있고, 신성한 성격은 천상의 이상들에 대한 하나의 묘사로서 상상될 수 있지만, 신성한 본성의 모든 계시들 중 가장 잘 깨우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성의 충만한 인식을 달성하기 이전과 이후의, 나사렛 예수의 종교적 삶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만일 미가엘의 육신화 된 삶이, 사람에게 주는 하느님의 계시의 배경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에 대한 인간 개념에서의 더욱 멀리 비치는 조명과 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신성한 본성에 관련되고 있

INTRODUCTION

2:0.1 (33:1) INASMUCH as man's highest possible concept of God is embraced within the human idea and ideal of a primal and infinite personality, it is permissible, and may prove helpful, to study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divine nature which constitute the character of Deity. The nature of God can best be understood by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ch Michael of Nebadon unfolded in his manifold teachings and in his superb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divine nature can also be better understood by man if he regards himself as a child of God and looks up to the Paradise Creator as a true spiritual Father.

2:0.2 (33:2) The nature of God can be studied in a revelation of supreme ideas, the divine character can be envisaged as a portrayal of supernal ideals, but the most enlightening and spiritually edifying of all revelations of the divine nature is to be found in the comprehension of the religious life of Jesus of Nazareth, both before and after his attainment of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If the incarnated life of Michael is taken as the background of the revelation of God to man, we may attempt to put in human word symbols certain ideas and ideals concerning the divine nature which may possibly

는, 어떤 관념과 이상들을 인간의 언어 상징 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영성화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필사 마음의 제한된 수용능력 때문에 엄청나게 장애를 받는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가치를 묘사하려는 그리고 유한자, 곧 사람의 필사 마음에게 영적 의미들을 제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조명이나 혹은 비교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빈곤 때문에 그리고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임무 수행은 심각하게 장애를 받고 있다. 필사 마음 속에 증여되어있는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가 내주하고, 창조자 아들의 진리 영이 가득 퍼져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면, 하느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대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의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도와주는 이들 신성한 영(靈)의 현존에 의존하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묘사를 시도하라는 나의 맡겨진 명령의 집행을 즐겁게 시작한다.

제 1 장. 하느님의 무한성

“무한자와 접하지만, 우리는 그를 찾아낼 수 없다. 신성한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남독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탐색할 수 없다.” 아버지 현존에서의 눈을 멀게하는 빛은, 그의 낮은 창조체들에게는 그가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탐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한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것처럼 우리는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탐색해낼 수도 없다.” “하느님이 정말로 땅 위에 거하겠는가? 보라, 하늘(우주)과 하늘들의 하늘(우주들의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 “그의 판단을 어찌 탐색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지나간 길들을 어찌 찾아낼 수 있겠는가!”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 계시다. 무한한 아버지, 그는 또한 신실한 창조자이시다.” “신성한 창조자는 또한 우주 결정자, 혼들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그는 최극 혼, 시원 마음이며 모든 창조의 무제한적 영이다.” “위대한 통제자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는 장엄과 영광으로 찬란하다.” “창조자 하느님에게는 두려움과 미움이 전혀 없다.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고 자아-실존하며 신성하고 풍성하다.” “만물의 하늘 선조(先祖)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심오하고 불가해한 분인가!” “무한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에서 가장 탁월하시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며, 모든 선함과 완전한 목적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며; 영원한 창조자는 원인들 중의 원인이다.”

contribute to a further illumination and unification of the human concept of the nature and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2:0.3 (33.3) In all our efforts to enlarge and spiritualize the human concept of God, we are tremendously handicapped by the limited capacity of the mortal mind. We are also seriously handicapped in the execution of our assignment by the limitations of language and by the poverty of material which can be utilized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or comparison in our efforts to portray divine values and to present spiritual meanings to the finite, mortal mind of man. All our efforts to enlarge the human concept of God would be well-nigh futile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mortal mind is indwelt by the bestowed Adjus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is pervaded by the Truth Spirit of the Creator Son. Depending, therefore, on the presence of these divine spirits within the heart of man for assistance in the enlargement of the concept of God, I cheerfully undertake the execution of my mandate to attempt the further portrayal of the nature of God to the mind of man.

1. THE INFINITY OF GOD

2:1.1 (33.4) “Touching the Infinite, we cannot find him out. The divine footsteps are not known.” “His understanding is infinite an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The blinding light of the Father’s presence is such that to his lowly creatures he apparently “dwells in the thick darkness.” Not only are his thoughts and plans unsearchable, but “he does great and marvelous things without number.” “God is great; we comprehend him not, neither can the number of his years be searched o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Behold, the heaven (universe) and the heaven of heavens (universe of universes) cannot contain him.”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his ways past finding out!”

2:1.2 (34.1) “There is but one God, the infinite Father, who is also a faithful Creator.” “The divine Creator is also the Universal Disposer, the source and destiny of souls. He is the Supreme Soul, the Primal Mind, and the Unlimited Spirit of all creation.” “The great Controller makes no mistakes. He is resplendent in majesty and glory.” “The Creator God is wholly devoid of fear and enmity. He is immortal, eternal, self-existent, divine, and bountiful.” “How pure and beautiful, how deep and unfathomable is the supernal Ancestor of all things!” “The Infinite is most excellent in that he imparts himself to men.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ather of every good and perfect purpos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eternal Creator is the cause of causes.”

아버지의 영원한 우주 개인성의 엄청난 현시 활동의 무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한과 영원 둘 모두에 대해 분별불가적으로 자아-의식 하며; 마찬가지로 그는 완전성과 힘을 충분히 아신다. 그는 우주에서 자신의 신성한 조화-협동자들을 제외하고, 자신에 대한 완전하고 엄밀하고 완벽한 평가를 체험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아버지는 그의 주(主)우주 의 다양한 구역들에서 때때로 변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의 필요를 끊임없이 그리고 반드시 충족시킨다. 위대한 하느님은 자신을 알고 남득하며; 그는 완전성의 모든 그의 시원의 속성들을 무한히 자아-의식 한다. 하느님은 조화우주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는 우주의 실험가도 아니다. 우주 주권자들은 모험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들은 실험할 수 있고; 체계 우두머리들은 실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시작에서 끝을 알며,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그의 광대한 권역의 모든 우주의 각 세계, 체계 그리고 별자리 안에 있는 그의 모든 종속들의 모든 실험들과 모든 모험들을 실제적으로 포용하고 이해한다.

하느님에게 새로운 사물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그 어떤 조화우주적 사건도 전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는 영원의 순환에 거주하신다. 그는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없이 늘 계신다. 하느님에게는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간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든지 현재이다. 그는 위대하며 유일한 스스로 이신 이이다.

우주 아버지는 그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분별된-자격이 없이 무한하다; 바로 이 사실이,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유한한 물질적 존재들과 다른 하급 피조 지능존재들과의 모든 직접적인 개인적 교통으로부터 그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갖가지 창조체들과의 접촉과 교통을 위한, 운명지어진 그러한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신성에 있어서 완전함에도, 또한 행성종족들의 바로 그 살과 피를 가진 자연본성으로 때때로 함께 하는,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성으로 너희들 중의 하나가 되고 너희와 하나가 되어; 그리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한 미가엘의 중여에서 발생하였듯이, 하느님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급 기원의 물질적 존재들에게 접근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하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세라핌천사군 들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기타 천상 지능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란시아의 인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예고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보내지는, 내주하도록 보내지는 위대한 하느님 자신의 실재 선물인 미(未)개인적 신비 감시자들, 생각 조절자들이 존재한다. 끝없는 풍부함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의식이나 또는 잠재적인 그러한 것의 수용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의 미천한 마음에게 은혜

2.1.3 (34.2) Notwithstanding the infinity of the stupendous manifestations of the Father's eternal and universal personality, he is unqualifiedly self-conscious of both his infinity and eternity; likewise he knows fully his perfection and power. He is the only being in the universe, aside from his divine co-ordinates, who experiences a perfect, proper, and complete appraisal of himself.

2.1.4 (34.3) The Father constantly and unfailingly meets the need of the differential of demand for himself as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in various sections of his master universe. The great God knows and understands himself; he is infinitely self-conscious of all his primal attributes of perfection. God is not a cosmic accident; neither is he a universe experimenter. The Universe Sovereigns may engage in adventure; the Constellation Fathers may experiment; the system heads may practice; but the Universal Father se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his divine plan and eternal purpose actually embrace and comprehend all the experiments and all the adventures of all his subordinates in every world, system, and constellation in every universe of his vast domains.

2.1.5 (34.4) No thing is new to God, and no cosmic event ever comes as a surprise; he inhabits the circle of eternity. He is without beginning or end of days. To God there is no past, present, or future; all time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He is the great and only I AM.

2.1.6 (34.5) The Universal Father is absolutely and without qualification infinite in all his attributes; and this fact, in and of itself, automatically shuts him off from all direct personal communication with finite material beings and other lowly created intelligences.

2.1.7 (34.6) And all this necessitates such arrangements for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his manifold creatures as have been ordained, first, i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Sons of God, who, although perfect in divinity, also often partake of the nature of the very flesh and blood of the planetary races, becoming one of you and one with you; thus, as it were, God becomes man, as occurred in the bestowal of Michael, who was called interchangeably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And second, there ar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various orders of the seraphic hosts and other celestial intelligences who draw near to the material beings of lowly origin and in so many ways minister to them and serve them. And third, there are the impersonal Mystery Monitors, Thought Adjusters, the actual gift of the great God himself sent to indwell such as the humans of Urantia, sent without announcement and without explanation. In endless profusion they descend from the heights

를 베풀고 그리고 내주하기 위하여 영광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들로,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한(有限) 이해력을 철저히 초월하는 방법들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이 내려오시며, 그리고 다른 한편 그의 창조체 자녀들의 유한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의 무한성을 변형시키고 희석시키며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절대성을 점차 감소시키는 일련의 개인성 분배들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그의 멀리 퍼진 우주의 많은 영역에 속한 다양한 지능존체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의 무한성, 영원성, 그리고 시원성의 사실 그리고 실제로부터 조금도 낮아짐이 없이,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며, 또한 행함을 영원토록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러한 창조체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충분히 납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최초 아버지가 그의 계획에서 무한하고 그의 목적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들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전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한 존재에게든지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사 사람은 아버지의 목적들을 우주가 진보하는 연속 차원들의 완성되어지는 창조체 상승계획 수행과 이에 따라서 그들이 드러나는데 따라서, 오직 이따금, 여기저기에서, 얼핏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무한성의 의의(意義)에 에워싸여 있을 수는 없지만, 무한하신 아버지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자녀의 모든 유한을 가장 분명하고 충만하게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포용하신다.

아버지는 수많은 상급 파라다이스 존재들과 신성과 영원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그의 조화-협동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와 무한성과 필연인 우주 시원성을 충만히 나누는지는 의문을 갖는다. 개인성의 무한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개인성의 모든 유한성을 포용하며;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리—글자 그대로 진리—이다. 필사 사람 속에 내주하는 우주 아버지의 순수한 신(神)의 그 단편은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무한성의 일부분이다.

제 2 장.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너희 옛 선지자들도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시작도-없고, 끝도-없는 순환적인 본성을 이해하였다. 하느님은 자신의 우주들의 우주 안에 글자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 그는 모든 그의 절대 장엄과 영원한 위대함을 가지고 현재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

of glory to grace and indwell the humble minds of those mortals who possess the capacity for God-consciousness or the potential therefor.

2:1.8 (35.1) In these ways and in many others, in ways unknown to you and utterly beyond finite comprehension, does the Paradise Father lovingly and willingly downstep and otherwise modify, dilute, and attenuate his infinity in order that he may be able to draw nearer the finite minds of his creature children. And so, through a series of personality distributions which are diminishingly absolute, the infinite Father is enabled to enjoy close contact with the diverse intelligences of the many realms of his far-flung universe.

2:1.9 (35.2) All this he has done and now does, and evermore will continue to do, without in the least detracting from the fact and reality of his infinity, eternity, and primacy. And these things are absolutely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their comprehension, the mystery in which they are enshrouded, or the impossibility of their being fully understood by creatures such as dwell on Urantia.

2:1.10 (35.3) Because the First Father is infinite in his plans and eternal in his purposes, it is inherently impossible for any finite being ever to grasp or comprehend these divine plans and purposes in their fullness. Mortal man can glimpse the Father's purposes only now and then, here and there, as they are revealed in relation to the outworking of the plan of creature ascension on its successive levels of universe progression. Though man cannot encompass the significance of infinity, the infinite Father does most certainly fully comprehend and lovingly embrace all the finity of all his children in all universes.

2:1.11 (35.4) Divinity and eternity the Father shares with large numbers of the higher Paradise beings, but we question whether infinity and consequent universal primacy is fully shared with any save his co-ordinate associates of the Paradise Trinity. Infinity of personality must, perforce, embrace all finitude of personality; hence the truth — literal truth — of the teaching which declares that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That fragment of the pure Deity of the Universal Father which indwells mortal man is a part of the inf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the Father of Fathers.

2. THE FATHER'S ETERNAL PERFECTION

2:2.1 (35.5) Even your olden prophets understood the eternal, never-beginning, never-ending, circular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iterally and eternally present in his universe of universes. He inhabits the present moment with all his absolute majesty and eternal greatness. “The Father has

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대에 두루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였다. 신성한 고결한-순수성 안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행성 사이의 관련사들에 관한 그의 행위에는 “아무런 변동 가능성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조차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선언한다.” 그는 말씀 하신다: “나의 조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아들 안에서 세운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아버지의 명령에는 완벽의 최종과 충만의 완전성이 있다.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까지나 늘 그럴 것이다;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고 어떤 것도 거기에서 감해질 수 없다.” 우주 아버지는 지혜와 완전성에 대한 그의 기원적 목적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조언들은 확고하고 그의 의도는 변경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들은 신성하고 오류가 없다. “그에게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시간과 같다.” 신성의 완전성과 영원의 장엄함은 필사 사람의 제한된 마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변함없는 하느님의 반응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의 피조 지능존재들의 변화하는 태도와 바뀌는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외관상 그리고 피상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표면의 아래 그리고 밖을 향한 모든 현시활동의 밑에는, 영원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속하는 계획이 여전히 있다.

바깥 우주들에서는, 완전성은 부득이 상대적인 용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앙우주 그리고 특별히 파라다이스에서는, 완전성은 희석되지 않는다; 어떤 위상들에서는 절대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현시활동은 신성한 완전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얹게 하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시원적 완전성은 어떤 가정되는 정의(正義)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성한 본성인 선천적 선(善)의 완전성에 들어 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의 의로운 성격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간의 세계들에서 살아있는 실존들의 전체 기획이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을 공유하는 체험인 높은 운명을 향해 모든 의지 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신성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하느님은 자아-중심적이지도 않고 자아-억제적이지도 않다; 그는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자아-의식적 창조체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완전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는 불완전성을 몸소 알 수 없지만,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진

life in himself, and this life is eternal life.” Throughout the eternal ages it has been the Father who “gives to all life.” There is infinite perfection in the divine integrity. “I am the Lord; I change not.” Our knowledg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discloses not only that he is the Father of lights, but also that in his conduct of interplanetary affairs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He “declar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He says: “My counsel shall stand; I will do all my pleasures”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I purposed in my Son.” Thus are the plans and purpos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like himself: eternal, perfect, and forever changeless.

2.2.2 (35.6) There is finality of completeness and perfection of repleteness in the mandates of the Father. “Whatsoever God does, it shall be forever; nothing can be added to it nor anything taken from it.” The Universal Father does not repent of his original purposes of wisdom and perfection. His plans are steadfast, his counsel immutable, while his acts are divine and infallible. “A thousand years in his sight are but as yesterday when it is past and as a watch in the night.” The perfection of divinity and the magnitude of eternity are forever beyond the full grasp of the circumscribed mind of mortal man.

2.2.3 (36.1) The reactions of a changeless God, in the execution of his eternal purpose, may seem t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attitude and the shifting minds of his created intelligences; that is, they may apparently and superficially vary; but underneath the surface and beneath all outward manifestations, there is still present the changeless purpose, the everlasting plan, of the eternal God.

2.2.4 (36.2) Out in the universes, perfection must necessarily be a relative term, but in the central universe and especially on Paradise, perfection is undiluted; in certain phases it is even absolute. Trinity manifestations vary the exhibition of the divine perfection but do not attenuate it.

2.2.5 (36.3) God's primal perfection consists not in an assumed righteousness but rather in the inherent perfection of the goodness of his divine nature. He is final, complete, and perfect. There is no thing lacking in the beauty and perfection of his righteous character. And the whole scheme of living existences on the worlds of space is centered in the divine purpose of elevating all will creatures to the high destiny of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 Father's Paradise perfection. God is neither self-centered nor self-contained; he never ceases to bestow himself upon all self-conscious creatures of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2.2.6 (36.4) God is eternally and infinitely perfect, he cannot personally know imperfection as his own experience, but he does share the consciousness

화 우주들에 속한 모든 투쟁하는 창조체들의 불완전함의 모든 체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한다. 완전성의 하느님의 개인적이고 해방시키는 손길은 도덕적 식별의 우주 차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저들 필사창조체들의 본성을 둘러싸고 그 가슴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는 신성한 현존의 접촉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는 전체 우주의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 생애 속에서 미성숙과 불완전성과 함께 하는 체험에 실제로 참여한다.

인간의 한계들, 잠재적 악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악과 함께 하는 필사 체험과 거기에서의 모든 사람의 관계들은 시간의 자녀들—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모든 창조자 아들에 의해 창조되어왔거나 진화되어온 도덕적 책임을 가진 창조체들—안에서의 하느님의 항상-확대하는 자아-실현의 일부분인 것이 아주 확실하다.

제 3 장. 공의(公義)와 정의(正義)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며; 따라서 그는 공정하다. “주님은 그의 모든 방법에 있어서 정의롭다.”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원인 없이 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전적으로 정의롭다.” 우주 아버지의 공의(公義)는 그의 창조체들의 활동과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에게는 어떤 사악한 불의도 없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선물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하느님께, 그의 변치 않는 천의(天意)를 바꾸라고, 그래서 그의 현명한 자연 법칙들과 의로운 영적 명령의 작용으로 인한 마땅한 귀결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철없이 간청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속지 말라; 하느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거두는 공의(公義)에 있어서도, 이 신성한 공의는 항상 자비로 완화된단다. 무한한 지혜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든지 내려질 공의와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중재자이다. 그릇된 행위와 하느님 정부에 대항하는 고의적 반역에 대한 가장 큰 형벌(실제로는 불가피한 결과)은 그 정부의 한 개별적 주체로서의 실존을 잃는 것이다. 전심에서 나온 죄의 최종적 결과는 절멸(絶滅)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죄-정체성 확인된 개별존체들은 사악한 불의를 포용함으로 전적으로 비(非)실체가 되어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창조체의 사실적 사라짐은 우주가 충분하게 준수되어 있는 것 안에서 운명 지어진 공의의 질서가 현해질 때 까지 항상 연기된다.

실존의 중지는 대개 영역 또는 영역들의 섭리 시대나 신시대적 판결이 있을 때 공표된다. 유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그것은 행성의 섭리시대

of all the experience of imperfectness of all the struggling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all the Paradise Creator Sons. The personal and liberating touch of the God of perfection overshadows the hearts and encircles the natures of all those mortal creatures who have ascended to the universe level of moral discernment. In this manner, as well as through the contacts of the divine presence,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experience *with* immaturity and imperfection in the evolving career of every moral being of the entire universe.

2:27 (36:5) Human limitations, potential evil, are not a part of the divine nature, but mortal experience *with* evil and all man's relations thereto are most certainly a part of God's ever-expanding self-realization in the children of time — creatures of moral responsibility who have been created or evolved by every Creator Son going out from Paradise.

3. JUSTICE AND RIGHTEOUSNESS

2:31 (36:6) God is righteous; therefore is he just. “The Lord is righteous in all his ways.” “I have not done without cause all that I have done,” says the Lord.” “The judgment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The justice of the Universal Father cannot be influenced by the acts and performances of his creatures, “for there is no iniquity with the Lord our God, no respect of persons, no taking of gifts.”

2:32 (36:7) How futile to make puerile appeals to such a God to modify his changeless decrees so that we can avoid the just consequences of the operation of his wise natural laws and righteous spiritual mandates!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True, even in the justice of reaping the harvest of wrongdoing, this divine justice is always tempered with mercy. Infinite wisdom is the eternal arbiter which determines the proportions of justice and mercy which shall be meted out in any given circumstance. The greatest punishment (in reality an inevitable consequence) for wrongdoing and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is loss of existence as an individual subject of that government. The final result of wholehearted sin is annihilation. In the last analysis, such sin-identified individuals have destroyed themselves by becoming wholly unreal through their embrace of iniquity. The factual disappearance of such a creature is, however, always delayed until the ordained order of justice current in that universe has been fully complied with.

2:33 (37:1) Cessation of existence is usually decreed at the dispensational or epochal adjudication of the realm or realms. On a world

의 끝에 온다. 실존의 증지는 행성협의회로부터 창조자 아들의 법정을 거쳐 옛적으로 늘 계신 이들의 심판법정에 이르는 모든 사법권을 갖는 법정들의 조화-협동 활동에 의하여, 그러한 시기에 공포될 수 있다. 괴멸의 명령은 그릇된 일을 행한 자가 거주하는 구체에서 비롯된 고발에 대한 파기될 수 없는 확인 이후에 초우주의 상급 법원에서 비롯한다; 그 다음에는, 소멸 판결이 높은 곳에서 확인되고 나면, 집행은 초우주의 본부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일하는 판사들의 직접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죄-정체성 확인된 존재는 즉시 그가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러한 숙명으로부터는 부활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영속하며 그리고 영원하다. 정체성의 살아 있는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의 변형들과 공간의 형태변형들에 의해, 그것들이 언젠가 창발하였던 조화우주의 잠재들 속으로 분해된다. 사악하고 불의한 자의 개인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수도 있는 선택과 최종 결정에 창조체가 실패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 매체를 빼앗긴 것이다. 연관된 마음에 의한 계속되는 죄 포용은 사악한 불의와의 완벽한 자아-정체성확인구현 안에서 극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중지됨에 따라, 조화우주로 분해됨에 따라, 그렇게 고립된 개인성은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흡수되어,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분이 된다. 그것은 결코 다시 개인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의 정체는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내주 개인성의 경우에는, 지속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체험적 영 가치들은 생존한다.

실체의 현재 차원들 사이의 어떤 우주 경쟁에서든지, 상급 차원의 개인성이 하급 차원의 개인성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된다. 우주 논쟁의 이 필연적 결말은 본질특성으로서의 신성이 어떤 의지 창조체이든지 실체성 또는 실체성의 정도와 동등하다는 사실에서 선천적이다. 순전한 악, 완벽한 잘못, 고의적 죄, 그리고 수그러지지 않은 사악한 불의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자멸이다. 조화우주의 비실체인 그러한 태도들은 정의로운 판결의 우주 법정들이 공의(公義)-결정의 명령을 보류하는 과도기 자비-관용과 그리고 공정성을-찾아내는 기능구조들 때문에 오직 우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지역우주들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통치는 창조와 영성화의 하나이다. 이들 아들들은 진보하는 필사자 상송이라는 파라다이스 계획의 효력적인 집행에, 반역자들과 그릇된 생각을 한 자들을 복귀시키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랑 넘치는 수고들이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거부되면 최종 괴멸 명령이 옛적으로 늘 계신 이들의 관할권 밑에서 움직이는 기세들에 의해 집행된

such as Urantia it comes at the end of a planetary dispensation. Cessation of existence can be decreed at such times by co-ordinate action of all tribunals of jurisdiction, extending from the planetary council up through the courts of the Creator Son to the judgment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mandate of dissolution originates in the higher courts of the superuniverse following an unbroken confirmation of the indictment originating on the sphere of the wrongdoer's residence; and then, when sentence of extinction has been confirmed on high, the execution is by the direct act of those judges residential on, and operating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2:3.4 (37.2) When this sentence is finally confirmed, the sin-identified being instantly becomes as though he had not been.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such a fate; it is everlasting and eternal. The living energy factors of identity are resolved by the transformations of time and the metamorphoses of space into the cosmic potentials whence they once emerged. As for the personality of the iniquitous one, it is deprived of a continuing life vehicle by the creature's failure to make those choices and final decisions which would have assured eternal life. When the continued embrace of sin by the associated mind culminates in complete self-identification with iniquity, then upon the cessation of life, upon cosmic dissolution, such an isolated personality is absorbed into the oversoul of creation, becoming a part of the evolving experience of the Supreme Being. Never again does it appear as a personality; its identity becomes as though it had never been. In the case of an Adjuster-indwelt personality, the experiential spirit values survive in the reality of the continuing Adjuster.

2:3.5 (37.3) In any universe contest between actual levels of reality, the personality of the higher level will ultimately triumph over the personality of the lower level. This inevitable outcome of universe controversy is inherent in the fact that divinity of quality equals the degree of reality or actuality of any will creature. Undiluted evil, complete error, willful sin, and unmitigated iniquity are inherently and automatically suicidal. Such attitudes of cosmic unreality can survive in the universe only because of transient mercy-tolerance pending the action of the justice-determining and fairness-finding mechanisms of the universe tribunals of righteous adjudication.

2:3.6 (37.4) The rule of the Creato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is one of creation and spiritualization. These Sons devote themselves to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Paradise plan of progressive mortal ascension, to the rehabilitation of rebels and wrong thinkers, but when all such loving efforts are finally and forever rejected, the final decree of dissolution is executed by forces acting

다.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제 4 장. 신성한 자비

4. THE DIVINE MERCY

자비는 단순히, 지식의 완전성과 유한 창조체들의 자연적 연약성과 환경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그 지혜에 의해 완화된 공의일 뿐이다. “우리 하느님은 연민이 가득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참으시며, 자비가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그가 충분하리만큼 용서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비는 영속에서 영속으로 이어지며”; 정말로, “그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애로움, 심판 그리고 정의(正義)를 베푸는 주님이며, 이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자녀를 고의적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슬프게 하지도 않는 데, “이는 내가” 자비의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본성적으로 연민이 가득하시며, 영속적으로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의 사랑 넘치는-친절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향도 결코 필요하지 않다. 창조체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온화한 자비와 그의 구원하는 은혜의 충만한 흐름을 보장하기에 온통 충분하다. 하느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더 잘 납득할수록, 그를 용서하는 것,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오직 무한한 지혜의 식별력만이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동시에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 안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을 향해 갈등하는 태도로 결코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결코 태도적인 적대주의의 희생자가 아니다. 하느님의 모든 것-알고계심은 그의 영원한 본성의 그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무한 본질특성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동시에, 그리고 균등하게 만족시키는 그 우주 행위성의 선택에 그의 자유의지를 틀림없이 지도한다.

자비는 선(善)과 사랑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랑 넘치는 하느님의 선(善)한 본성은 그의 우주 자녀들의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자비의 현명한 사명활동을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영원한 공의와 신성한 자비는 인간 체험 속에서 소위 공정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함께 구성한다.

신성한 자비는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우주 차원들 사이를 조절하는 하나의 공정(公正) 기법을 나타낸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상황들에 맞추어진 최극위의 공의, 시간의 자녀들의 가장 높은 이익과 우주 복지를 만족 시키려고 수정된 영원의 정의(正義)이다. 자비는 공의(公義)에 대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하는 우주들의 물질창조체에게 그리고 종속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공정하게 적용 되듯이, 최극 공의의 요구를 납득하는 해석이다. 자비는, 그것이 신성한 지

2:4.1 (38.1) Mercy is simply justice tempered by that wisdom which grows out of perfection of knowledge and the full recognition of the natural weaknesses and environmental handicaps of finite creature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gracious, long-suffering, and plenteous in mercy.” Therefore “whosoever calls upon the Lord shall be save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The mercy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es, “his mercy endures forever.” “I am the Lord who executes loving-kindness, judgment,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I do not afflict willingly nor grieve the children of men,” for I am “the Father of mercies and the God of all comfort.”

2:4.2 (38.2) God is inherently kind, naturally compassionate, and everlastingly merciful. And never is it necessary that any influence be brought to bear upon the Father to call forth his loving-kindness. The creature's need is wholly sufficient to insure the full flow of the Father's tender mercies and his saving grace. Since God knows all about his children, it is easy for him to forgive. The better man understands his neighbor, the easier it will be to forgive him, even to love him.

2:4.3 (38.3) Only the discernment of infinite wisdom enables a righteous God to minister justice and mercy at the same time and in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The heavenly Father is never torn by conflicting attitudes towards his universe children; God is never a victim of attitudinal antagonisms. God's all-knowingness unfailingly directs his free will in the choosing of that universe conduct which perfectly, simultaneously, and equally satisfies the demands of all his divine attributes and the infinite qualities of his eternal nature.

2:4.4 (38.4) Mercy is the natural and inevitable offspring of goodness and love. The good nature of a loving Father could not possibly withhold the wise ministry of mercy to each member of every group of his universe children. Eternal justice and divine mercy together constitute what in human experience would be called *fairness*.

2:4.5 (38.5) Divine mercy represents a fairness technique of adjustment between the universe levels of perfection and imperfection. Mercy is the justice of Supremacy adapted to the situations of the evolving finite, the righteousness of eternity modified to meet the highest interests and universe welfare of the children of time. Mercy is not a contravention of justice but rather an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of the demands of supreme justice as it is fairly applied to the

혜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우주 아버지와 그의 모든 연관 창조자들의 모든 것-아는 마음과 주권을 가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 있는 갖가지 지능존재들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내려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이다.

제 5 장.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한 유일한 그의 개인적 태도는 항상 신성한 애정 반응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증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태양을 뜨게 하시며 온당한 자와 부당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신다.”

자기 아들들의 희생이나 또는 그의 피조 종속들의 탄원 때문에 설득되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놀라운 조절자들을 보낸다.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는 “진리의 지식을 얻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게 하신다.” 그는 “누구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창조자들은 사람들이 신성한 법칙들을 어리석게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하시는 이들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애정이다; 따라서 그는 때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역경에 있게 한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고통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느님은 죄인들에게 신성하게 다정하시다. 반역자들이 정의로움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자비롭게 받아들여지며, “이는 우리 하느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이며,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증여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보라.”

결국,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최극 이유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선물-너희 두 존재가 영원히 하나가 될 그때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절자-이다. 비록 너희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만일 너희가 내주하는 영의 인도를 따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우주에 우주를 거쳐서 그리고 한 시대 한 시대,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개인성의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될 때까지, 틀림없이 인도될 것이다.

인간 본성의 한계와 너희 물질적 창조체의 장

subordinate spiritual beings and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Mercy is the justice of the Paradise Trinity wisely and lovingly visited upon the manifold intelligences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s it is formulated by divine wisdom and determined by the all-knowing mind and the sovereign fre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his associated Creators.

5. THE LOVE OF GOD

2:5.1 (38.6) “God is love”; therefore his only personal attitude towards the affairs of the universe is always a reaction of divine affection. The Father loves us sufficiently to bestow his life upon us. “He mak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2:5.2 (39.1) It is wrong to think of God as being coaxed into loving his children because of the sacrifices of his Sons or the intercession of his subordinate creatures,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It is in response to this paternal affection that God sends the marvelous Adjusters to indwell the minds of men. God’s love is universal; “whosoever will may come.” He would “have all men be saved by coming i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He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2:5.3 (39.2) The Creators are the very first to attempt to save man from the disastrous results of his foolish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s. God’s love is by nature a fatherly affection; therefore does he sometimes “chasten us for our own profit,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Even during your fiery trials remember that “in all our afflictions he is afflicted with us.”

2:5.4 (39.3) God is divinely kind to sinners. When rebels return to righteousness, they are mercifully received, “for our God will abundantly pardon.”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2:5.5 (39.4) After all, the greatest evidence of the goodness of God and the supreme reason for loving him is the indwelling gift of the Father — the Adjuster who so patiently awaits the hour when you both shall be eternally made one. Though you cannot find God by searching, if you will submit to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spirit, you will be unerringly guided, step by step, life by life, through universe upon universe, and age by age, until you finally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2:5.6 (39.5) How unreasonable that you should not

애들이 너희가 그를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너희와 하느님 사이에는 건너야 되는 엄청난 거리(물리적 공간)가 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다리를 놓아야만 하는 영적 차이의 거대한 심연(深淵)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너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리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엄숙한 사실을 멈추어 숙고해 보라;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그 심연에 다리를 놓았다. 그는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할 때 너희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수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 그의 영을 보내 왔다.

나는 그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그의 하급 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사명활동에 그토록 애정을 담아 헌신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쉽고도 기쁜 일임을 발견한다. 나는 창조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통제에서 그토록 능력이 있는데도, 선함에 그토록 완전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리우는 사랑함-친절함에 그토록 신실하신 분을 당연히 사랑한다. 나는 그가 그토록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선하고 자비롭다면, 똑같이 하느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운 속성들을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본성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공간 우주들의 진화에 선천적으로 있는 시간의 갖가지 어려움들과 그토록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행정-관리자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내가 우주들의 비교적 작은, 이들 통치자에게 크고 심오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나는, 영역들의 필사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우주 아버지와 신성하거나 인간인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개인성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식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을 받는 체험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응답이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라는 모든 속성들이 그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를 최극으로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순환에 두루,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 넘치는 본성을 숙고할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타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개인성 반응이 있다: 너희는 너희 조물주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겠고;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부모에게 주는 것과 비슷한 애정을 너희가 하느님께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 실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주 아버지는 그의 피조 아들들과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언제까지나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부모의 애정이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와 우주 아버지의 완전 본성의 다른 모든 무한 특징들과 합일된 관계적-연합 속에서 기능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느님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에 대한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현시활동은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 안에서 보이지만, 그

worship God because the limitations of human nature and the handicaps of your material creation make it impossible for you to see him. Between you and God there is a tremendous distance (physical space) to be traversed. There likewise exists a great gulf of spiritual differential which must be bridged; but notwithstanding all that physically and spiritually separates you from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God, stop and ponder the solemn fact that God lives within you; he has in his own way already bridged the gulf. He has sent of himself, his spirit, to live in you and to toil with you as you pursue your eternal universe career.

2:5.7 (39.6) I find it easy and pleasant to worship one who is so great and at the same time so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 uplifting ministry of his lowly creatures. I naturally love one who is so powerful in creation and in the control thereof, and yet who is so perfect in goodness and so faithful in the loving-kindness which constantly overshadows us. I think I would love God just as much if he were not so great and powerful, as long as he is so good and merciful. We all love the Father more because of his nature than in recognition of his amazing attributes.

2:5.8 (39.7) When I observe the Creator Sons and their subordinate administrators struggling so valiantly with the manifold difficulties of time inherent i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s of space, I discover that I bear these lesser rulers of the universes a great and profound affection. After all, I think we all, including the mortals of the realms, love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other beings, divine or human, because we discern that these personalities truly love us. The experience of loving is very much a direct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being loved. Knowing that God loves me, I should continue to love him supremely, even though he were divested of all his attribute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2:5.9 (40.1) The Father's love follows us now and throughout the endless circle of the eternal ages. As you ponder the loving nature of God, there is only one reasonable and natural personality reaction thereto: You will increasingly love your Maker; you will yield to God an affection analogous to that given by a child to an earthly parent; for, as a father, a real father, a true father, loves his children, so the Universal Father loves and forever seeks the welfare of his created sons and daughters.

2:5.10 (40.2) But the love of God is an intelligent and farseeing parental affection. The divine love functions in unified association with divine wisdom and all other infinite characteristics of the perfect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ove, but love is not God.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the divine love for mortal beings is observed in the

리나 너희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삶을 살았던 그의 미가엘 아들의 증여 삶 속에서 보인다. 각각의 인간 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개별존재화하는 이는 바로 내주하는 조절자이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언어 상징을 사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신성한 애정을 묘사하라고 강요된 것이 가끔 나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단어는, 그것이 비록 존중과 헌신이라는 필사 관계들에 대한 사람의 최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너무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우주 창조체들을 향한 그의 비길 데 없는 애정을 나타내는 데, 또한 사용되는 어떤 언어로 알려지기에 는 온통 저급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의 참된 본성과 절묘하게 아름다운 의의(意義)를 사람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숭고한 그리고 전용적인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없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사람이 어떤 개인적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 하느님의 왕국은 단지 선(善)한 왕국이 되고 만다. 신성한 본성의 무한한 합일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느님이 그의 창조체들과 가지는 모든 개인적 거래에서 지배적인 특징이다.

제 6 장. 하느님의 선함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는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지적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식별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선함은 오직 개인적 종교 체험의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그것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 종교는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신앙-신뢰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는 지능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또한 도덕적임에 틀림없다; 그는 선하심에 틀림없다. 사람은 위대한 하느님은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오직 선하신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느님의 이 선함은 하느님의 개인성의 일부분이며, 그것에 대한 그 충만한 계시는 오직 하느님의 믿는 아들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만 나타난다.

종교는 영 본성의 초(超)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 필요를 인식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종교는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오직 계시 종교만이 참되게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하느님이 임금으로서의 도덕으로 지배하는 신(神)이라는 옛 개념은 예수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인,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는 차원으로 향상되었는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것보다 더 온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느님의 선함의 풍부함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누우침으로 인도한다. “모든 선한 재능과 모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but your greatest revelation of the Father's love is seen in the bestowal life of his Son Michael as he lived on earth the ideal spiritual life. It is the indwelling Adjuster who individualizes the love of God to each human soul.

2:5.11 (40.3) At times I am almost pained to be compelled to portray the divine aff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for his universe children by the employment of the human word symbol *love*. This term, even though it does connote man's highest concept of the mortal relations of respect and devotion, is so frequently designative of so much of human relationship that is wholly ignoble and utterly unfit to be known by any word which is also used to indicate the matchless affection of the living God for his universe creatures! How unfortunate that I cannot make use of some supernal and exclusive term which would convey to the mind of man the true nature and exquisitely beautiful significance of the divine affection of the Paradise Father.

2:5.12 (40.4) When man loses sight of the love of a personal God, the kingdom of God becomes merely the kingdom of good. Notwithstanding the infinite unity of the divine nature, love is the dominant characteristic of all God's personal dealings with his creatures.

6. THE GOODNESS OF GOD

2:6.1 (40.5) In the physical universe we may see the divine beauty, in the intellectual world we may discern eternal truth, but the goodness of God is found only in the spiritual world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its true essence, religion is a faith-trust in the goodness of God. God could be great and absolute, somehow even intelligent and personal, in philosophy, but in religion God must also be moral; he must be good. Man might fear a great God, but he trusts and loves only a good God. This goodness of God is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God, and its full revelation appears only i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believing sons of God.

2:6.2 (40.6) Religion implies that the superworld of spirit nature is cognizant of, and responsive to,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human world. Evolutionary religion may become ethical, but only revealed religion becomes truly and spiritually moral. The olden concept that God is a Deity dominated by kingly morality was upstepped by Jesus to that affectionately touching level of intimate family mor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which there is none more tender and beautiful in mortal experience.

2:6.3 (41.1) The “richness of the goodness of God leads erring man to repentance.” “Every good gift

든 완전한 재능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느님은 선하시며; 그는 사람들의 혼이 쉼 영원한 피난처이다.” “주님 하느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는 오래-참으시고 선(善)과 진리가 풍부하시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알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연민이 가득하시다. 그는 구원의 하느님이시다.” “그는 절망에 빠진 자를 고치시고 혼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사람의 만능이신 은인이시다.”

왕-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비록 높은 도덕기준을 육성하고 그리고 법을-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었지만, 개별 신자를 시간과 영원 안에서의 그의 지위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슬픈 처지에 내버려 두었다. 후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선언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을 각 인간 존재의 아버지로 드러냈다. 예수의 일생은 하느님에 대한 필사자 개념 전체를 초월하여 조명하고 있다. 자아없음은 부모의 사랑 속에 선천적으로 있다. 하느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그는 모든 우주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시다.

정의(正義)는 하느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진리는 하느님을 계시자로, 가르치는 자로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갈망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납득하는 동료관계를 추구한다. 정의(正義)는 신성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느님의 정의(正義)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아없는 사랑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추측은, 신(神)의 본성에 합일성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리고는 하느님의 합일성과 자유-의지성 둘 모두에 대한 철학적 공격인, 보상 교리라는 고심작으로 직접 가도록 이끌었다.

그의 영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 속에 거주하는,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아버지는, 분리된 개인성—공의의 개인성 그리고 자비의 개인성—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 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신성한 정의(正義)는 엄격한 인과응보의 공의(公義)로 지배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은 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을 초월한다.

하느님은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지혜가 종종 그의 사랑을 억제하며 한편, 공의(公義)가 그의 거부된 자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정의(正義)의 사랑이 죄를 동등하게 미워하는 것으로 전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는 일관성 없는 개인성이 아니며; 신성한 합일성은 완전하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는, 하느님과 조화-협동자들의 영원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합일성이 있다.

하느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한 말은 철학적으로는 참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초월적 개인성이며, 개인만이 다른 개인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죄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개인성 실체(잠재적

and every perfect gift comes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God is good; he is the eternal refuge of the souls of men.” “The Lord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He i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him.” “The Lord is gracious and full of compassion. He is the God of salvation.”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 wounds of the soul. He is man’s all-powerful benefactor.”

2:6.4 (41.2) The concept of God as a king-judge, although it fostered a high moral standard and created a law-respecting people as a group, left the individual believer in a sad position of insecurity respecting his status in time and in eternity. The later Hebrew prophets proclaimed God to be a Father to Israel; Jesus revealed God as the Father of each human being. The entire mortal concept of God is transcendently illuminated by the life of Jesus. Selflessness is inherent in parental love. God loves not *like* a father, but as a father. He is the Paradise Father of every universe personality.

2:6.5 (41.3) Righteousness implies that God is the source of the moral law of the universe. Truth exhibits God as a revealer, as a teacher. But love gives and craves affection, seeks understanding fellowship such as exists between parent and child. Righteousness may be the divine thought, but love is a father’s attitude. The erroneous supposition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was irreconcilable with the selfless love of the heavenly Father, presupposed absence of unity in the nature of Deity and led directly to the elaboration of the atonement doctrine, which is a philosophic assault upon both the unity and the free-willness of God.

2:6.6 (41.4) The affectionate heavenly Father, whose spirit indwells his children on earth, is not a divided personality — one of justice and one of mercy — neither does it require a mediator to secure the Father’s favor or forgiveness. Divine righteousness is not dominated by strict retributive justice; God as a father transcends God as a judge.

2:6.7 (41.5) God is never wrathful, vengeful, or angry. It is true that wisdom does often restrain his love, while justice conditions his rejected mercy. His love of righteousness cannot help being exhibited as equal hatred for sin. The Father is not an inconsistent personality; the divine unity is perfect. In the Paradise Trinity there is absolute unity despite the eternal identities of the co-ordinates of God.

2:6.8 (41.6) God loves the sinner and *hates* the sin: such a statement is true philosophically, but God is a transcendent personality, and persons can only love and hate other persons. Sin is not a person. God loves the sinner because he is a

으로 영원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반면,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개인적 태도도 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의 공의는 단지 그것의 실존에 대해 인식할 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한다; 하느님의 법이 죄를 파괴한다. 필사 마음이 내주하는 영 조절자와 스스로를 충분하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이, 만일 죄인이 자기 자신을 온통 죄로 최종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면, 신성한 본성의 이 태도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죄-정체성 확인된 필사자는 본성에서 온통 비(非)영적인 상태가 되며 (따라서 개인성으로 비(非)실체적이며) 결국에는, 존재의 소멸을 체험하게 된다. 비(非)실체는, 심지어는 창조체 본성의 미완성조차도, 점진적으로 실체가 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되는 우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개인성의 세계와 대면할 때, 하느님은 사랑 넘치는 개인임이 발견된다; 영적 세계와 대면할 때에는, 그는 개인적 사랑이다;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그는 둘 모두에 해당한다. 사랑은 하느님의 자발적 의지를 정체화한다. 하느님의 선택은 신성한 자유의 지성—사랑하고, 자비를 보이고, 인내를 현시하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제 7 장.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모든 유한(有限) 지식과 창조체 납득은 상대적이다. 정보와 지능은, 비록 높은 근원들에서 단편적으로 수집되었다라든, 오직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부분적으로 정확하며 개인적으로 참될 뿐이다.

물리적 사실들은 상당히 일정하지만, 진리는 우주의 철학에 있어서 살아있고 유연한 요소이다. 진화하는 개인성들은 그들의 교통에서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길으로 보기에 온통 참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른 창조 구역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된 것일 수 있다.

신성한 진리, 최종 진리는 한결같이 보편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구체에서 흘러져 나온 수많은 개별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식의 완벽성에서의 이 상대성 때문에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체험의 길이와 정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체험의 충만함에서 다를 수 있다.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법칙과 뜻, 생각과 태도가 영원히, 무한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된 반면; 동시에, 각 우주, 체계, 세계와 창조된 지능존재에 대하여 이 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절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 다른 모든 연관된 천상의 개인성들의 지역적 계획과 과정에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 각자의 우주에서 기능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과 기법에 일치한다.

personality reality (potentially eternal), while towards sin God strikes no personal attitude, for sin is not a spiritual reality; it is not personal; therefore does only the justice of God take cognizance of its existence. The love of God saves the sinner; the law of God destroys the sin. This attitude of the divine nature would apparently change if the sinner finally identified himself wholly with sin just as the same mortal mind may also fully identify itself with the indwelling spirit Adjuster. Such a sin-identified mortal would then become wholly unspiritual in nature (and therefore personally unreal) and would experience eventual extinction of being. Unreality, even incompleteness of creature nature, cannot exist forever in a progressively real and increasingly spiritual universe.

2:6.9 (42.1) Facing the world of personality, God is discovered to be a loving person; facing the spiritual world, he is a personal love; in religious experience he is both. Love identifies the volitional will of God. The goodness of God rests at the bottom of the divine free-willness — the universal tendency to love, show mercy, manifest patience, and minister forgiveness.

7. DIVINE TRUTH AND BEAUTY

2:7.1 (42.2) All finite knowledge and creature understanding are *rela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gleaned from even high sources, is only relatively complete, locally accurate, and personally true.

2:7.2 (42.3) Physical facts are fairly uniform, but truth is a living and flexible factor in the philosophy of the universe. Evolving personalities are only partially wise and relatively true in their communications. They can be certain only as far as their personal experience extends. That which apparently may be wholly true in one place may be only relatively true in another segment of creation.

2:7.3 (42.4) Divine truth, final truth, is uniform and universal, but the story of things spiritual, as it is told by numerous individuals hailing from various spheres, may sometimes vary in details owing to this relativity in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and in the repleteness of personal experience as well as in the length and extent of that experience. While the laws and decre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re eternally, infinitely, and universally true; at the same time, their application to, and adjustment for, every universe, system, world, and created intelligence, are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and technique of the Creator Sons as they function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as well as in harmony with the local plans and procedures of the Infinite

물질주의의 잘못된 과학은 필사 사람을 우주 속에 버림을 받은 것으로 판결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인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이다; 그것은 선과 악 둘로 이루어진 지식이다. 진리는 충만하면서도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그는 신성한 실체를 추구한다.

철학자들은 추상적 관념의 오류, 곧 실체의 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천 관행으로 잘못 인도될 때, 가장 중대한 잘못을 범한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고립된 양상이 진리 전체가 되는 것으로 장담한다. 현명한 철학자는 항상 모든 우주 현상 뒤에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선재(先在)하는 창조적 설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창조자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 행동보다 앞선다.

지적 자아-의식은, 진리의 아름다움, 그것의 영적 본질특성을, 그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일관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계시는 진리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진리를 인식함으로부터 생기는데, 이는 진리가 활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망과 슬픔은 실수 위에서 일어나는 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없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에 의해 가장 잘 알려진다.

영원한 탐구는 통일을 위한, 신성한 결합을 위한 것이다. 멀리-퍼지는 물리적 우주는 파라다이스 섬에서 결합하며; 지적 우주는 마음의 하느님, 공동 행위자 안에서 결합하며; 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안에서 결합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속한 고립된 필사자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우주 아버지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결합한다. 사람의 조절자는 하느님의 단편이고 신성한 통일을 영속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파라다이스 신(神)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결합한다.

최극 아름다움을 식별함은 실체의 발견과 그리고 집대성활동이다: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善)을 식별함, 그것은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조차도 그 합일성의 조화 속에 있다.

히브리 종교의 큰 오류는 과학의 사실적 진리들과 예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하느님의 선함과 연관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도록 하느님의 선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리석은 길을 일관되게 추구한 이래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고립된 선(善)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열된 관념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경향이 점점 더 생겨났다. 많은 20-세기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는데 실패한, 현대 종교의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고립적인 도덕성은, 만일 그

Spirit and of all other associated celestial personalities.

2.7.4 (42.5) The false science of materialism would sentence mortal man to become an outcast in the universe. Such partial knowledge is potentially evil; it is knowledge composed of both good and evil. Truth is beautiful because it is both replete and symmetrical. When man searches for truth, he pursues the divinely real.

2.7.5 (42.6) Philosophers commit their gravest error when they are misled into the fallacy of abstraction, the practice of focusing the attention upon one aspect of reality and then of pronouncing such an isolated aspect to be the whole truth. The wise philosopher will always look for the creative design which is behind, and pre-existent to, all universe phenomena. The creator thought invariably precedes creative action.

2.7.6 (42.7)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can discover the beauty of truth, its spiritual quality, not only by the philosophic consistency of its concepts, but more certainly and surely by the unerring response of the ever-present Spirit of Truth. Happiness ensues from the recognition of truth because it can be *acted out*; it can be lived. Disappointment and sorrow attend upon error because, not being a reality, it cannot be realized in experience. Divine truth is best known by its *spiritual flavor*.

2.7.7 (42.8) The eternal quest is for unification, for divine coherence. The far-flung physical universe coheres in the Isle of Paradise; the intellectual universe coheres in the God of mind, the Conjoint Actor; the spiritual universe is coher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But the isolated mortal of time and space coheres in God the Father through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and the Universal Father. Man's Adjuster is a fragment of God and everlastingly seeks for divine unification; it coheres with, and in, the Paradise De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2.7.8 (43.1) The discernment of supreme beauty is the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reality: The discernment of the divine goodness in the eternal truth, that is ultimate beauty. Even the charm of human art consists in the harmony of its unity.

2.7.9 (43.2) The great mistake of the Hebrew religion was its failure to associate the goodness of God with the factual truths of science and the appealing beauty of art. As civilization progressed, and since religion continued to pursue the same unwise course of overemphasizing the goodness of God to the relative exclusion of truth and neglect of beauty, there developed an increasing tendency for certain types of men to turn away from the abstract and dissociated concept of isolated goodness. The overstressed and isolated morality

도덕적 명령에 추가하여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의 진리들을, 물질 창조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성격 성취라는 웅장함과 똑같이 배려한다면, 그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조화우주적 진리와 우주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善)의 확대되고 절묘하게 집대성된 현대적 개념들에서 나오는, 새롭고도 매력적인 살아있는 삶의 철학을 과감하게 구축하게 될,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고 진취적으로-내다보는 남녀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한 도덕의 새롭고도 정의로운 시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인간의 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진리(眞)와 아름다움(美)과 선(善)함은 신성한 실체들이며, 사람이 영적 삶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영원자의 이 최극 본질특성들은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점점 더 조화-협동되고 통합될 것이다.

모든—물질적, 철학적, 또는 영적—진리는 아름다운 동시에 선하다. 모든—물질적 예술 또는 영적 대칭—실제적 아름다움은 참된 동시에 선하다. 모든—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공평성, 또는 신성한 사명활동, 그 어떤 것이든지—진정한 선(善)은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 건전함 그리고 행복은, 인간 체험 안에서 혼합되는 것으로서의 그러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의 집대성활동이다. 효과를 이루는 삶의 그와 같은 차원들은 에너지 체계들, 관념 체계들, 그리고 영 체계들의 통일을 통하여 두루 나온다.

진리는 응집력이 있고, 아름다움은 끌어당기며, 선(善)은 안정을 이룬다. 실체인 이들 가치들이 개인성 체험 속에서 조화-협동될 때, 그 결과는 지혜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고 충성에 의해 분별화되는 높은 계층의 사랑이다. 모든 우주 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은 세계들의 고립된 자녀가 그의 확대되는 체험의 더 큰 실체들과 더 나은 조화-협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차원에서는 유한하고, 좀 더 높은 그리고 신성한 차원들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of modern religion, which fails to hold the devotion and loyalty of many twentieth-century men, would rehabilitate itself if, in addition to its moral mandates, it would give equal consideration to the truths of science, philosophy, and spiritual experience, and to the beauties of the physical creation, the charm of intellectual art, and the grandeur of genuine character achievement.

2:7.10 (43.3) The religious challenge of this age is to those farseeing and forward-looking men and women of spiritual insight who will dare to construct a new and appealing philosophy of living out of the enlarged and exquisitely integrated modern concepts of cosmic truth, universe beauty, and divine goodness. Such a new and righteous vision of morality will attract all that is good in the mind of man and challenge that which is best in the human soul.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divine realities, and as man ascends the scale of spiritual living, these supreme qualities of the Eternal become increasingly co-ordinated and unified in God, who is love.

2:7.11 (43.4) All truth — material, philosophic, or spiritual — is both beautiful and good. All real beauty — material art or spiritual symmetry — is both true and good. All genuine goodness — whether personal morality, social equity, or divine ministry — is equally true and beautiful. Health, sanity, and happiness are integratio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s they are blended in human experience. Such levels of efficient living come about through the unification of energy systems, idea systems, and spirit systems.

2:7.12 (43.5) Truth is coherent, beauty attractive, goodness stabilizing. And when these values of that which is real are co-ordinated in personality experience, the result is a high order of love conditioned by wisdom and qualified by loyalty. The real purpose of all universe education is to effect the better co-ordination of the isolated child of the worlds with the larger realities of his expanding experience. Reality is finite on the human level, infinite and eternal on the higher and divine levels.

2:7.13 (43.5)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3 편 하느님의 속성

⇨ 002

유랜시아 책

004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3 편 하느님의 속성

섹션

소개

- 제 1 장. 하느님의 어디에나-계심
- 제 2 장. 하느님의 무한한 힘
- 제 3 장. 하느님의 우주 지식
- 제 4 장. 하느님의 한계 없으심
- 제 5 장. 아버지의 최극 통치
- 제 6 장. 아버지의 시원성(始原性)

PAPER 3

THE ATTRIBUTE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 1. God's Everywhere-ness
- 2. God's Infinite Power
- 3. God's Universal Knowledge
- 4. God's Limitlessness
- 5. The Father's Supreme Rule
- 6. The Father's Primacy

소개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 아버지는 영원의 순환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개인 속에서, 나아가 그는 이 아들들을 통하여 생명을 증여함으로써, 지역우주 안에서 통치하신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하느님의 이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의 구역들에서의, 그리고 공간의 진화 우주들의 소용돌이치는 행성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자신의 개인적 표현이다.

고도로 개인성구현된 하느님의 아들들은 피조 지능존재들의 낮은 계층들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무한하고 그리하여 잘 식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불가시성(不可視性)을 보상한다.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신들의 개인성 안에 그리고 영원의 순환계 안에 선천적인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한편 눈에 보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계시이다.

창조자관계는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그의 활동본성의 집합이다. 그리고 창조자관계의 이 우주 기능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하고도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화-협동 속성들에 의해 그것이 조절되고 통제되는 것

INTRODUCTION

3:0.1 (44.1) GOD is everywhere present; the Universal Father rules the circle of eternity. But he rules in the local universes in the persons of his Paradise Creator Sons, even as he bestows life through these Sons.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s.” These Creator Sons of God are the personal expression of himself in the sectors of time and to the children of the whirling planets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space.

3:0.2 (44.2) The highly personalized Sons of God are clearly discernible by the lower orders of created intelligences, and so do they compensate for the invisibility of the infinite and therefore less discernible Father. The Paradise Creator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a revelation of an otherwise invisible being, invisible because of the absoluteness and infinity inherent in the circle of eternity and i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Deities.

3:0.3 (44.3) Creatorship is hardly an attribute of God; it is rather the aggregate of his acting nature. And this universal function of creatorship is eternally manifested as it is conditioned and controlled by all the co-ordinated attributes of the infinite and divine

으로 영원하게 현시된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 중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들보다 선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스럽다, 만일 그 경우가 사실이었다면, 신(神)의 창조자관계 본성은 다른 모든 본성들, 활동들 그리고 속성들보다 선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神)의 창조자관계는 하느님이 아버지신분이라는 우주 진리에서 정점을 이룬다.

제 1 장. 하느님의 어디에나-계심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현존할 수 있는 우주 아버지의 능력이 그의 전재(全在)를 이룩한다. 하느님 홀로만 두 곳에, 수많은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하느님은 “위에 있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땅에” 동시에 현존하시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의 영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으며 당신의 현존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도망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멀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도 있는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우주 아버지는 그의 멀리-퍼지는 창조 안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 그리고 모든 가슴 속에 항상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속에 충만한”, 그리고 “만물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의 충만함”이며, 더 나아가, 그의 개인성의 개념은 “하늘(우주)과 하늘들의 하늘(우주들의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계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느님의 전부가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만 최종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원인은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는 결코 충만하게 이해될 수 없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은 그의 속박되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창조적 활동들의 결과로서 존재로 되어 온 그 창조의 전채 총계보다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하느님은 조화우주에 두루 계시되지만, 그 조화우주는 결코 하느님의 무한성 전채를 포함하거나 둘러쌀 수 없다.

아버지의 현존은 주(主)우주 를 끊임없이 순찰한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 끝으로부터 이고, 그의 순환회로는 그 끝까지 이고, 아무 것도 그 빛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없다.”

창조체가 하느님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또한 창조체 속에 사신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며; 그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의 이 선물은 사람의 떨어질 수 없는 동행자이다.” “그는 언제까지나-계시는 모든 것에-스며드는 하느님이다.” “영속하시는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자 자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사람은 친구를 찾아 나아가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참된 하느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한다.” “아버지는 자녀안에 사신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sincerely doubt whether any one characteristic of the divine nature can be regarded as being antecedent to the others, but if such were the case, then the creatorship nature of Deity would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natures, activities, and attributes. And the creatorship of Deity culminates in the universal truth of the Fatherhood of God.

1. GOD'S EVERYWHERENESS

3:1.1 (44.4) The ability of the Universal Father to be everywhere present, and at the same time, constitutes his omnipresence. God alone can be in two places, in numberless places, at the same time. God is simultaneously present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neath”; as the Psalmist exclaimed: “Whither shall I go from your spirit? or whither shall I flee from your presence?”

3:1.2 (44.5) “‘I am a God at hand as well as afar off,’ says the Lord. ‘Do not I fill heaven and earth?’” The Universal Father is all the time present in all parts and in all hearts of his far-flung creation. He is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and in all,” and “who works all in all,” and further, the concept of his personality is such that “the heaven (universe) and heaven of heavens (universe of universes) cannot contain him.” It is literally true that God is all and in all. But even that is not *all* of God. The Infinite can be finally revealed only in infinity; the cause can never be fully comprehended by an analysis of effects; the living God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the sum total of creation that has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the creative acts of his unfettered free will. God is revealed throughout the cosmos, but the cosmos can never contain or encompass the entirety of the infinity of God.

3:1.3 (45.1) The Father’s presence unceasingly patrols the master universe. “His going forth is from the end of the heaven, and his circuit to the ends of it; and there is nothing hidden from the light thereof.”

3:1.4 (45.1) The creature not only exists in God, but God also lives in the creature. “We know we dwell in him because he lives in us; he has given us his spirit. This gift from the Paradise Father is man’s inseparable companion.” “He is the ever-present and all-pervading God.” “The spirit of the everlasting Father is concealed in the mind of every mortal child.” “Man goes forth searching for a friend while that very friend lives within his own heart.” “The true God is not afar off; he is a part of us; his spirit speaks from within us.” “The Father lives in the child. God is always with us. He is the guiding spirit of eternal destiny.”

다. 그는 영원한 운명의 안내하는 영이다.”

인간 종족이 “너희는 하느님께 속한다.”고 말을 들어온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느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느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이다. 그릇된 행위를 할 때에도 역시 너희는 내주하는 하느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이는 생각 조절자가 그를 가두어 놓고있는 인간 마음과 함께 악하게 생각하는 귀결들을 두루 거치며 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전재(全在)는 실체 안에서 그의 무한한 본성의 일부분이다; 공간은 신(神)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직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 안에서만. 하느님은 완전성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존한다. 따라서 그는 하보나를 감싸고 있는 창조계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조화-협동 창조자들과 통치자들의 주권과 신성한 특권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직접적이고 실재적인 현존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현존의 개념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현존 순환 회로를 포함하는 현시활동의 형식과 경로, 둘 모두의 넓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우주 아버지의 현존과 그의 영원한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대리자들의 활동은 항상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의 변하지 않는 목적의 모든 무한한 요구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충족시킨다. 그러나 개인성 순환회로와 조절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독특하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활동하신다.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의 중력 순환회로 속에, 질량에 따라서, 이 현존에 대한 물리적 요구에 응답하여 그리고 만물을 응집하고 그의 안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모든 창조의 선천적 본성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분별불가 절대자, 영원한 미래에 속하는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의 저장소 안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물리적 우주들 속에 잠재적으로 가득 퍼져있다. 그는 소위 물질적 창조의 응집성의 시원적 기초이다. 이 비(非)영적 신(神)의 잠재는, 우주 활동의 단계에서 그의 독점적 대리자들 중 어느 하나의 불가해(不可解)한 침입으로 인하여 물리적 실존들의 차원에 두루 여기저기에서 실재적이 된다.

하느님의 마음 현존은 공동 행위자, 무한한 영의 절대 마음과 상관관계되어 있지만, 유한 창조계에서는 그것이 파라다이스 주(主) 영들의 조화우주 마음이 기능하는 모든 곳에서 좀 더 잘 식별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들 안에 잠재적으로 현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우주 절대자의 긴장들 속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나 인간 계층의 마음은 공동 행위자의 딸들, 진화 우주들의 신성한 사명활동자

3:1.5 (45.1) Truly of the human race has it been said, “You are of God” because “he who dwells in love dwells in God, and God in him.” Even in wrongdoing you torment the indwelling gift of God, for the Thought Adjuster must needs go through the consequences of evil thinking with the human mind of its incarceration.

3:1.6 (45.1) The omnipresence of God is in reality a part of his infinite nature; space constitutes no barrier to Deity. God is, in perfection and without limitation, discernibly present only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He is not thus observably present in the creations encircling Havona, for God has limited his direct and actual presence in recognition of the sovereignty and the divine prerogatives of the co-ordinate creators and ruler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Hence must the concept of the divine presence allow for a wide range of both mode and channel of manifestation embracing the presence circuits of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Isle of Paradise. Nor is it alway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actions of his eternal co-ordinates and agencies, so perfectly do they fulfill all the infinite requirements of his unchanging purpose. But not so with the personality circuit and the Adjusters; here God acts uniquely, directly, and exclusively.

3:1.7 (45.1) The Universal Controller is potentially present in the gravity circuits of the Isle of Paradise in all parts of the universe at all times and in the same degree, in accordance with the mass, in response to the physical demands for this presence, and because of the inherent nature of all creation which causes all things to adhere and consist in him. Likewise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potentially present in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repository of the uncreated universes of the eternal future. God thus potentially pervades the physical universe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e is the primordial foundation of the coherence of the so-called material creation. This nonspiritual Deity potential becomes actual here and there throughout the level of physical existences by the inexplicable intrusion of some one of his exclusive agencies upon the stage of universe action.

3:1.8 (45.1) The mind presence of God is correlated with the absolute mind of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Spirit, but in the finite creations it is better discerned in the everywhere functioning of the cosmic mind of the Paradise Master Spirits. Just a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otentially present in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so is he potentially present in the tensions of the Universal Absolute. But mind of the human order

들의 증여물이다.

우주 아버지의 어디에나-있는 영은 영원한 아들의 우주 영 현존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영속하는 신성한 잠재의 기능과 조화-협동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은 물론이고 무한한 영의 마음 증여들까지도, 그의 피조 자녀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느님의 내주하는 단편들인 생각 조절자들의 직접적 행동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관하여, 어떤 창조적 단위에서든지 그러한 현존의 정도는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현존의 정도의 척도가 된다: 그것은 체계들 그리고 행성들 자체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약해지는, 광대한 우주의 부분에서 하느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심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느님의 고귀한 현존의 이 위상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희망에서, 어떤 행성들(또는 심지어는 체계들)이 영적 어두움 안으로 깊이 빠졌을 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격리되거나 또는 보다 큰 창조 단위들과의 내적 교제로부터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되고 있듯이, 그 세계들의 다수가, 완고하고 사악하며 반역적인 소수의 따로 떨어지는 행위로 인한 고립이 만드는 귀결의 고통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어하는 반응이다.

아버지가 모든 그의 아들들—모든 개인성들—을 어버이로서 순환회로 안에 두지만, 그들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신(神)의 둘째 그리고 셋째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멀리 떨어져있음에 의해 제한되고, 그들의 운명 달성이 그러한 차원들에 가까이 감에 따라 증강된다. 창조체 마음들 안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신비 감시자들과 같은 아버지 단편들이 그들에게 내주하느냐 안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의 효력적인 현존은 그들이 머무는 마음들이 이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조화되는 협동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아버지의 현존의 동요들은 하느님의 가변성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격리되어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애정은 창조체의 그릇된 행위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힘을(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선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가슴과 혼 안에서의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력의 정도와 한계들을 직접 결정한다. 아버지는 제한과 편애함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무상으로 증여하셨다. 그는 개인들, 행성들, 체계들 또는 우주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시간 구역들에서 그는 철중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개인성들, 유한한 우주들의 조화-협동 창조자들에게만 서로 다른 명

is a bestowal of the Daughters of the Conjoint Actor, the Divine Ministers of the evolving universes.

3:1.9 (46.1) The everywhere-present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is co-ordinated with the function of the universal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everlasting divine potential of the Deity Absolute. But neither the spiritual activity of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nor the mind bestowals of the Infinite Spirit seem to exclude the direct ac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indwelling fragments of God, in the hearts of his creature children.

3:1.10 (46.2) Concerning God's presence in a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a universe, the degree of such presence in any creational unit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the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It is determined by the en masse recognition of God and loyalty to him on the part of the vast universe organization, running down to the systems and planets themselves. Therefore it is sometimes with the hope of conserving and safeguarding these phases of God's precious presence that, when some planets (or even systems) have plunged far into spiritual darkness, they are in a certain sense quarantined, or partially isolated from intercourse with the larger units of creation. And all this, as it operates on Urantia, is a spiritually defensive reaction of the majority of the worlds to save themselves, as far as possible, from suffering the isolating consequences of the alienating acts of a headstrong, wicked, and rebellious minority.

3:1.11 (46.3) While the Father parentally encircuits all his sons — all personalities — his influence in them is limited by the remoteness of their origin from the Second and the Third Persons of Deity and augmented as their destiny attainment nears such levels. The fact of God's presence in creature minds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y are indwelt by Father fragments, such as the Mystery Monitors, but his effective presence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operation accorded these indwelling Adjusters by the minds of their sojourn.

3:1.12 (46.4) The fluctuations of the Father's presence are not due to the changeableness of God. The Father does not retire in seclusion because he has been slighted; his affections are not alienated because of the creature's wrongdoing. Rather, having been endowed with the power of choice (concerning Himself), his children, in the exercise of that choice, directly determine the degree and limitations of the Father's divine influence in their own hearts and souls. The Father has freely bestowed himself upon us without limit and without favor.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planets, systems, or universes. In the sectors of time he confers

예를 수여한다.

differential honor only on the Paradise personalities of God the Sevenfold, the co-ordinate creators of the finite universes.

제 2 장. 하느님의 무한한 힘

2. GOD'S INFINITE POWER

모든 우주들은 “전능한 주님 하느님이 지배하심”을 안다.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의 관련사들은 신성하게 감독된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느님의 힘 이외에는 아무 힘도 없다”는 말은 영원히 참되다.

신성한 본성과 일치되는 그 한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사람들, 행성들 그리고 우주들이 길게 이어져 겪는 진화과정들은 우주 창조자들과 행정-관리자들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으며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일치하여 펼쳐진다. 조화와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지혜이신 계획과 일치하여 진행한다. 오직 한 분의 입법자만이 있다. 그는 세계들을 공간에 유지시키고 영원한 순환회로의 끝없는 순환계를 따라 우주들을 휘둘러 하는 회전을 시킨다.

모든 신성한 속성들 중에서 그의 전능하심은, 특히 그것이 물질적 우주 안에 널리 퍼져있어, 가장 잘 납득된다. 비(非)영적 현상으로 본다면, 하느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에 대한 이 선언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모든 공간의 우주의 물리적 현상의 시원적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신성한 활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다른 물질적 현시활동들이 도래된다. 빛, 이것은, 열이 없는 빛은, 신(神)들의 비(非)영적 현시활동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실질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非)영적 에너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것은 아직 인지되지 않고 있다.

하느님은 모든 힘들을 통제하시며; 그는 “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셨으며; 그는 모든 에너지의 순환회로들을 정하셨다. 그는 에너지-물질의 모든 형태의 현시활동 시간과 방법을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영속하는 장악 안에—하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중력의 통제 속에—언제까지나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느님의 빛과 에너지는 그의 장엄한 순환회로, 곧 우주들의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들의 끝없는 그러나 계층적인 행렬을 따라 그렇게 영원히 휘돌아 회전한다. 모든 창조체는 파라다이스-만물과 존재들의 개인성 중심을 영원히 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세 에너지들이 그에게 아주 근접된 가운데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곳—만물의 근원, 절대 차원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속한다. 파라다이스 단일소(單一素)도 아니고 파라다이스 영도 아닌, 창조체 마음은 우주 아버지에게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

3:2.1 (46.5) All the universes know that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other worlds are divinely supervise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in the army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It is eternally true, “there is no power but of God.”

3:2.2 (46.6) Within the bounds of tha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ivine nature, it is literally true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long-drawn-out evolutionary processes of peoples, planets, and universes are under the perfect control of the universe creators and administrators and unfold in accordance with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proceeding in harmony and order and in keeping with the all-wise plan of God. There is only one lawgiver. He upholds the worlds in space and swings the universes around the endless circle of the eternal circuit.

3:2.3 (47.1) Of all the divine attributes, his omnipotence, especially as it prevails in the material universe, is the best understood. Viewed as an unspiritual phenomenon, God is energy. This declaration of physical fact is predicated on the incomprehensible truth tha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rimal cause of the universal physical phenomena of all space. From this divine activity all physical energy and other material manifestations are derived. Light, that is, light without heat, is another of the nonspiritual manifestations of the Deities. And there is still another form of nonspiritual energy which is virtually unknown on Urantia; it is as yet unrecognized.

3:2.4 (47.2) God controls all power; he has made “a way for the lightning”; he has ordained the circuits of all energy. He has decreed the time and manner of the manifestation of all forms of energy-matter. And all these things are held forever in his everlasting grasp — in the gravitational control centering on nether Paradise. The light and energy of the eternal God thus swing on forever around his majestic circuit, the endless but orderly procession of the starry hosts compos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All creation circles eternally around the Paradise-Personality center of all things and beings.

3:2.5 (47.3) The omnipotence of the Father pertains to the everywhere dominance of the absolute level, whereon the three energies,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are indistinguishable in close proximity to him — the Source of all things. Creature mind, being neither Paradise monota nor Paradise spirit,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생각 조절자들을 통하여 불완전성의 마음과 함께—유란시아 필사자들과 함께 조절하신다.

우주 아버지는 과도기적인 기세나 뒤바뀌는 힘 또는 동요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지혜는 어떤 그리고 모든 우주 위급사태들에 대처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인간 체험의 긴급사태들이 나타날 때, 그는 그들 모두를 예견해 왔고, 따라서 그는 분리된 방법으로 우주의 관련사태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무한한 심판의 명령들의 조화 속에서 반응한다. 겉으로 나타난 것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힘은 우주 안에서 맹목적인 기세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긴급 통치가 이루어졌고, 자연 법칙이 중지되었고, 그릇된 적응이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시정하도록 어떤 수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은 너희 관점의 제한된 범위에서, 너희 이해력의 유한성에서, 그리고 너희의 한정된 검사 범위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납득은 영역의 상급 법의 실존, 아버지의 성격의 장엄, 그의 속성의 무한, 그리고 그의 자유-의지함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너희가 깊은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우주들에 두루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영이 내주하는 행성 창조체들은, 그 수와 계층에 있어서 너무나 무한에 가깝고, 그들의 지능들은 너무나 다양하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제한되고 때로는 조잡하며, 그들의 시야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지엽적이어서, 아버지의 무한 속성들을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개괄적인 법칙을 만들고 동시에 이들 피조 지능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 창조체에게는, 만능이신 창조자의 행위들 중 많은 것이 독단적이고, 개별적이고, 종종 냉혹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단언한다. 하느님의 행위들은 모두 목적이 있고, 지능적이고, 현명하고, 친절하며, 최상의 선을 영원히 고려하는데, 언제나 한 개별존재나 개별종족이나 개별행성 또는 심지어 개별우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존재의 복지와 최상의 선(善)을 위한 것이다. 시간의 섭리시대에 있어서 일부분의 복지가 어떤 경우에는 전체의 복지와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데; 영원의 순환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외견상의 차이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가족의 일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족 단련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그토록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하느님의 활동들 중 많은 부분은 모든-지혜의 결정들과 최종적 통치들의 결과이다, 공동 행위자에

is not directly responsive to the Universal Father. God *adjusts* with the mind of imperfection — with Urantia mortals through the Thought Adjusters.

3:2.6 (47.4) The Universal Father is not a transient force, a shifting power, or a fluctuating energy. The power and wisdom of the Father are wholly adequate to cope with any and all universe exigencies. As the emergencies of human experience arise, he has foreseen them all, and therefore he does not react to the affairs of the universe in a detached way but rather in accordance with the dictates of eternal wisdom and in consonance with the mandates of infinite judgment. Regardless of appearances, the power of God is not functioning in the universe as a blind force.

3:2.7 (47.5) Situations do arise in which it appears that emergency rulings have been made, that natural laws have been suspended, that misadaptations have been recognized, and that an effort is being made to rectify the situation; but such is not the case. Such concepts of God have their origin in the limited range of your viewpoint, in the finiteness of your comprehension, and in the circumscribed scope of your survey; such misunderstanding of God is due to the profound ignorance you enjoy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higher laws of the realm, the magnitude of the Father's character, the infinity of his attributes, and the fact of his free-willness.

3:2.8 (47.6) The planetary creatures of God's spirit indwelling,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 universes of space, are so nearly infinite in number and order, their intellects are so diverse, their minds are so limited and sometimes so gross, their vision is so curtailed and localized,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ormulate generalizations of law adequately expressive of the Father's infinite attributes and at the same time to any degree comprehensible to these created intelligences. Therefore, to you the creature, many of the acts of the all-powerful Creator seem to be arbitrary, detached, and not infrequently heartless and cruel. But again I assure you that this is not true. God's doings are all purposeful, intelligent, wise, kind, and eternally considerate of the best good, not always of an individual being, an individual race, an individual planet, or even an individual universe; but they are for the welfare and best good of all concerned,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In the epochs of time the welfare of the part may sometimes appear to differ from the welfare of the whole; in the circle of eternity such apparent differences are nonexistent.

3:2.9 (48.1) We are all a part of the family of God, and we must therefore sometimes share in the family discipline. Many of the acts of God which so disturb and confuse us are the result of the decisions and final rulings of all-wisdom,

게 힘을 부여하면서 무한 마음의 결코 틀림없는 의지가 선택하는 것을 집행하고, 완전의 개인성의 결정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의 탐색, 시각 그리고 심려는 모든 그의 광대한 그리고 멀리-퍼지는 창조계의 가장 높은 것과 영원한 복지를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보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많은 신성한 행위들의 지혜와 친절함이, 너희에게 그렇게 부쉬 버리는 냉혹함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 이웃 창조체들의 행성 행복과 개인 번영에 대해, 위로와 복지에 대해 그렇게 철저한 무관심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한 어떤 장애를 만들게 하는 것은 너희의 분리되고 단편적이고 유한하고 조잡하고 매우 물질적인 관점과 그리고 너희 존재의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한계들이다. 너희가 하느님의 동기들을 잘못 납득하고 목적들을 오해하는 것은, 인간 시야의 한계 때문이고, 너희의 한정된 납득과 그리고 유한한 납득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행위들이 아닌 많은 것들이 진화 세계에서 발생한다.

신성한 전능은 하느님의 개인성의 다른 속성들과 완전하게 조화-협동을 이룬다. 하느님의 힘은, 대개, 그 우주 영적 현시활동 속에서 세 가지 조건 또는 상황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1. 하느님의 본성에 의해, 특별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의해.
2. 하느님의 뜻에 의해, 그의 자비로운 사명활동 그리고 우주의 개인성들과의 아버지로서의 관계에 의해.
3. 하느님의 법에 의해,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정의(正義)와 공의(公義)에 의해.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고,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고, 의지에 있어서 최중이고, 속성들에 있어서 무한하고, 지혜에 있어서 영원하며, 실체에 있어서 절대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들은 신(神) 안에서 합일되어 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 우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라는 중앙우주 밖에서는, 하느님께 속하는 모든 것이 최극자의 진화적 현존으로 제한되고, 궁극위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현존으로 조절되며, 세 실존적 절대자들—신, 우주, 그리고 분별불가—로 조화-협동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은 그러한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다.

empowering the Conjoint Actor to execute the choosing of the infallible will of the infinite mind, to enforce the decisions of the personality of perfection, whose survey, vision, and solicitude embrace the highest and eternal welfare of all his vast and far-flung creation.

3:2.10 (48.2) Thus it is that your detached, sectional, finite, gross, and highly materialistic viewpoint and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nature of your being constitute such a handicap that you are unable to see, comprehend, or know the wisdom and kindness of many of the divine acts which to you seem fraught with such crushing cruelty, and which seem to be characterized by such utter indifference to the comfort and welfare, to the planetary happiness and personal prosperity, of your fellow creatures. It is because of the limits of human vision, it is because of your circumscribed understanding and finite comprehension, that you misunderstand the motives, and pervert the purposes, of God. But many things occur on the evolutionary worlds which are not the personal doings of the Universal Father.

3:2.11 (48.3) The divine omnipotence is perfectly co-ordinated with the other attributes of the personality of God. The power of God is, ordinarily, only limited in its universe spiritual manifestation by three conditions or situations:

3:2.12 (48.4) 1. By the nature of God, especially by his infinite love, by truth, beauty, and goodness.

3:2.13 (48.5) 2. By the will of God, by his mercy ministry and fatherly relationship with th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3:2.14 (48.6) 3. By the law of God, by the righteousness and justice of the eternal Paradise Trinity.

3:2.15 (48.6) God is unlimited in power, divine in nature, final in will, infinite in attributes, eternal in wisdom, and absolute in reality. But all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unified in Deity and universally expressed in the Paradise Trinity and in the divine Sons of the Trinity. Otherwise, outside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everything pertaining to God is limited by the evolutionary presence of the Supreme, conditioned by the eventuating presence of the Ultimate, and co-ordinated by the three existential Absolutes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nd God's presence is thus limited because such is the will of God.

제 3 장. 하느님의 우주 지식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성한 마음은 모든 창조체의 생각을 의식하고 그것을 밝히 알고 있다. 사건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우주적이며 완전하다. 그로부터 나아가는 신성한 실존개체들은

3. GOD'S UNIVERSAL KNOWLEDGE

3:3.1 (48.8) “God knows all things.” The divine mind is conscious of, and conversant with, the thought of all creation. His knowledge of events is universal and perfect. The divine entities going out

그의 일부분이다; “구름을 저울로 다는” 그 분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너희 위대한 선생이 하찮은 참새에 대하여, “그들 중 하나도 내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그리고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말하며; 그것들을 그 이름대로 부른다.”

우주 아버지는 공간의 별들과 행성들의 숫자를 실제로 아는 온 우주 안에서의 유일한 개인성이시다. 각각의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의식 안에 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 하신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 왔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왔으며,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다.” 이는 “주님은 하늘로부터 바라보며;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보시며; 그의 거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체 자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다시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는 멀리에서 우리 생각을 납득하시고 모든 우리의 길을 잘 아신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분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었고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구조를 아시며; 너희가 티끌임을 기억 하신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될 것이다. 예수는,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에게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였다.

하느님은 모든 것들을 아는 무제한적 힘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의 의식은 우주적이다. 그의 개인성 순환회로는 모든 개인들을 에워싸며, 심지어 낮은 창조체에 대한 것이라도 그의 지식은 내려오는 일련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완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한한 영이 항상 어디서나 현존한다.

우리는 하느님이 죄의 사건들을 미리 아시기로 선택하는지 아니하는지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자기 자녀들의 자유의지 활동들을 미리 아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견(先見)은 그들의 자유를 조금도 폐기시키지 않는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느님은 결코 놀라지 않는다.

전능은 행할 수-없는것, 하느님과-같지-않음의 행위를 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지성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유한 마음에게는 거의 납득시킬 수 없다. 창조체는 창조자의 뜻의 범위와 한계들을 거의 납득할 수 없다.

제 4 장. 하느님의 한계 없으심

우주들이 생겨나게 됨에 따른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연속적 증여는 그것들이 신(神)의 중앙 계

from him are a part of him; he who “balances the clouds” is also “perfect in knowledge.” “The eyes of the Lord are in every place.” Said your great teacher of the insignificant sparrow, “One of them shall not fall to the ground without my Father’s knowledge,” and also,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He tell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3.3.2 (49.1) The Universal Father is the only personality in all the universe who does actually know the number of the stars and planets of space. All the worlds of every universe are constantly within the consciousness of God. He also says: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I have heard their cry, and I know their sorrows.” For “the Lord looks from heaven; he beholds all the sons of men; from the place of his habitation he looks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Every creature child may truly say: “He knows the way I take, and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God knows our downsittings and our uprisings; he understands our thoughts afar off and is acquainted with all our ways.”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 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And it should be a real comfort to every human being to understand that “he knows your frame; he remembers that you are dust.” Jesus, speaking of the living God, said, “Your Father knows what you have need of even before you ask him.”

3.3.3 (49.2) God is possessed of unlimited power to know all things; his consciousness is universal. His personal circuit encompasses all personalities, and his knowledge of even the lowly creatures is supplemented indirectly through the descending series of divine Sons and directly throug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And furthermore, the Infinite Spirit is all the time everywhere present.

3.3.4 (49.3) We are not wholly certain as to whether or not God chooses to foreknow events of sin. But even if God should foreknow the freewill acts of his children, such foreknowledge does not in the least abrogate their freedom. One thing is certain: God is never subjected to surprise.

3.3.5 (49.4) Omnipotence does not imply the power to do the nondoable, the ungodlike act. Neither does omniscience imply the knowing of the unknowable. But such statements can hardly be made comprehensible to the finite mind. The creature can hardly understand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will of the Creator.

4. GOD’S LIMITLESSNESS

3.4.1 (49.5) The successive bestowal of himself upon the universes as they are brought into being

인성 속에 계속 존재하고 머무르고 있을 때의 힘의 잠재 또는 지혜의 저장고를 결코 경감시키지 않는다. 기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의 잠재에 있어서 아버지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그의 종속 창조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창조체에 대한 아낌없는 자기증여의 결과로, 그의 소유 중 어떤 것도 줄어들지 않으며 그의 영광스러운 개인성의 어떤 속성도 빼앗기지 않는다.

모든 새로운 우주의 창조는 중력의 새로운 조절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록 창조가 무기한적으로, 영원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무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결국에는 물질적 창조가 한도 없이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에 평온히 있는 통제와 조화-협동의 힘은 그러한 무한한 우주에 대한 지배, 통제 그리고 조화-협동에 상응하고 또한 그것에 알맞은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한없는 우주에 대한 무제한적 기세와 힘의 증여 이후에, 무한자는 여전히 같은 정도의 기세와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마치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이 우주와 우주마다의 자질을 쏟아 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무한한 잠재를 여전히 소유하신다.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영역들의 사고(思考)에 그토록 자유롭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신성한 지혜의 중앙 근원을 조금도 허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들이 몇 배가 되고 영역의 존재들이 포용의 한계까지 숫자가 늘어나고, 마음이 이 높고 낮은 지위의 존재들에게 증여되는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해도, 하느님의 중앙 개인성은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모든-지혜 마음을 여전히 계속하여 포용할 것이다.

그가 너희 세계 그리고 다른 세계들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내주하도록 자신으로부터 영(靈) 메신저들을 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만능이신 영 개인성으로서 기능하는 그의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그가 보낼 수 있고 또 보내게 될 그러한 영 감시자들의 범위와 숫자에는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그의 창조체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신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이 필사자들을 위한 진보하고 연속하는 실존의 무한한, 거의 믿을 수 없는 미래 가능성을 창조한다. 그리고 사명 활동하는 이들 영 실존개체들로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분배하는 이 일은, 모든-지혜, 모든 것-아심, 그리고 만능이신 아버지의 개인 안에 평온히 있는 진리 그리고 지식의 지혜로움과 완전성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는다.

시간의 필사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느님은 영원 속에 거하신다. 비록 내가 신(神)이 거하는 바로 그곳 근처로부터 흠어져 나왔지만, 나는 여러 신성한 속성들의 무한성에 관하여 납득의 완전성으로 말한다고는 감히 할 수 없다. 마음의 무한만이 실존의 무한과 행동의 영원을 충분히 이

in no wise lessens the potential of power or the store of wisdom as they continue to reside and repose in the central personality of Deity. In potential of force, wisdom, and love, the Father has never lessened aught of his possession nor become divested of any attribute of his glorious personality as the result of the unstinted bestowal of himself upon the Paradise Sons, upon his subordinate creations, and upon the manifold creatures thereof.

3:4.2 (49.6) The creation of every new universe calls for a new adjustment of gravity; but even if creation should continue indefinitely, eternally, even to infinity, so that eventually the material creation would exist without limitations, still the power of control and co-ordination reposing in the Isle of Paradise would be found equal to, and adequate for, the mastery, control, and co-ordination of such an infinite universe. And subsequent to this bestowal of limitless force and power upon a boundless universe, the Infinite would still be surcharged with the same degree of force and energy; the Unqualified Absolute would still be undiminished; God would still possess the same infinite potential, just as if force, energy, and power had never been poured forth for the endowment of universe upon universe.

3:4.3 (50.1) And so with wisdom: The fact that mind is so freely distributed to the thinking of the realms in no wise impoverishes the central source of divine wisdom. As the universes multiply, and beings of the realms increase in number to the limits of comprehension, if mind continues without end to be bestowed upon these beings of high and low estate, still will God's central personality continue to embrace the same eternal, infinite, and all-wise mind.

3:4.4 (50.2) The fact that he sends forth spirit messengers from himself to indwell the men and women of your world and other worlds in no wise lessens his ability to function as a divine and all-powerful spirit personality; and there is absolutely no limit to the extent or number of such spirit Monitors which he can and may send out. This giving of himself to his creatures creates a boundless, almost inconceivable future possibility of progressive and successive existences for these divinely endowed mortals. And this prodigal distribution of himself as these ministering spirit entities in no manner diminishes the wisdom and perfection of truth and knowledge which repose in the person of the all-wise, all-knowing, and all-powerful Father.

3:4.5 (50.3) To the mortals of time there is a future, but God inhabits eternity. Even though I hail from near the very abiding place of Deity, I cannot presume to speak with perfection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infinity of many of the divine attributes. Infinity of mind alone can fully

해할 수 있다.

필사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무한성을 알 길이 없다. 유한 마음은 그러한 절대 진리 또는 사실을 생각해 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한 인간 존재는 그러한 무한 아버지 사랑의 충만하고도 경감되지 않은 영향을 실제로 느낄 수—글자 그대로 체험할 수—있다. 그러한 사랑은 정말로 체험될 수 있는데, 체험의 본질특성이 무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의 양은 영적 접수성에 대한 인간 수용능력에 의해 그리고 이에 답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연관된 수용능력에 의해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무한한 본질특성에 대하여 유한한 인식이, 그 창조체의 논리상 제한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그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상징을 따라 만들어졌다는—그의 속에 무한의 단편이 살고 있는—사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사람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는 일은 사랑에 의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관계 전체는 조화우주의 사회학에서의, 창조자-창조체 관계—아버지-자녀 애정—에 대한 실제적 체험이다.

제 5 장. 아버지의 최극 통치

하보나-이후 창조계에 대한 그의 접촉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적 권한을 직접적인 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개인성들을 통하여 행사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한다. 위임된 힘의 일부 또는 전부는, 만일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 만일 그것이 신성한 마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직접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오직 위임받은 그 개인성이 신성한 신탁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한 결과로서만 발생될 뿐이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불이행 앞에서 그리고 신성한 힘과 잠재가 유보되는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맡겨진 명령에 따라서 행하신다; 그 선택은 항상 어김없는 완전함이고 무한한 지혜의 그것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며; 우주 조직의 아래로 내려가면, 아버지의 광대한 권역에 속하는 진화 구체들의 운명들을 지도하는 행성영주들에게서 끝이 나는 중단 없는 통치자들의 연결고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저들 외침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충만케 하신다.” “그가 왕들을 폐(廢) 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신다.” “지고자(至高者)들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신다.”

사람의 가슴속 관련사들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방법을 항상 취하시는 아니하더라도; 행성에서의 행위성과 운명에 있어서는 신성한 계획이 널리 퍼져있다; 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

comprehend infinity of existence and eternity of action.

3:4.6 (50.4) Mortal man cannot possibly know the infinitude of the heavenly Father. Finite mind cannot think through such an absolute truth or fact. But this same finite human being can actually *feel* — literally experience — the full and undiminished impact of such an infinite Father's LOVE. Such a love can be truly experienced, albeit while quality of experience is unlimited, quantity of such an experience is strictly limited by the human capacity for spiritual receptivity and by the associated capacity to love the Father in return.

3:4.7 (50.5) Finite appreciation of infinite qualities far transcends the logically limited capacities of the creature because of the fact that mortal man is made in the image of God — there lives within him a fragment of infinity. Therefore man's nearest and dearest approach to God is by and through love, for God is love. And all of such a unique relationship is an actual experience in cosmic sociology, the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 the Father-child affection.

5. THE FATHER'S SUPREME RULE

3:5.1 (50.6) In his contact with the post-Havona creations, the Universal Father does not exercise his infinite power and final authority by direct transmittal but rather through his Sons and their subordinate personalities. And God does all this of his own free will. Any and all powers delegated, if occasion should arise, if it should become the choice of the divine mind, could be exercised direct; but, as a rule, such action only takes place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delegated personality to fulfill the divine trust. At such times and in the face of such default and within the limits of the reservation of divine power and potential, the Father does act independent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his own choice; and that choice is always one of unfailing perfection and infinite wisdom.

3:5.2 (51.1) The Father rules through his Sons; on down through the universe organization there is an unbroken chain of rulers ending with the Planetary Princes, who direct the destinies of the evolutionary spheres of the Father's vast domains. It is no mere poetic expression that exclaims: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He removes kings and sets up kings.”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3:5.3 (51.2) In the affairs of men's hearts the Universal Father may not always have his way; but in the conduct and destiny of a planet the divine plan prevails; the eternal purpose of wisdom

이 승리한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크시며; 누구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느님의 거의 한없는 창조의 다양한 일들을 얼핏 바라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대함을 볼 때, 너희는 그의 시원성에 대한 너희 개념에 있어서 움츠릴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가, 모든 것들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보좌에 올라 있으며, 그리고 모든 지능 존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느님 그리고 모두의 아버지”가 계시며, “그는 모든 것들 이전에 계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생명의 불확실성과 실존의 변천성은 하느님의 우주 주권에 대한 개념에 어떤 방법으로도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진화 창조체 삶은 어떤 불가피성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1. 용기—성격의 강한 힘—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실패에 반응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타심—자기 동료에 대한 봉사—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삶의 체험이 사회적 불평등과 마주치는 상황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소망—신뢰의 절정—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 실존은 불안정성과 되풀이되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신앙—인간적 생각의 최극 확신—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조금 아는 곤란한 궁지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기꺼이 따름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잘못이 존재하고 허위가 항상 가능한 세계 속에서 자라야만 한다.

6. 이상주의—신성한 것에 다가가는 개념—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상대적 선함과 아름다움의 환경, 더 나은 것들에 도달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환경 속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충성—가장 높은 의무에 대한 헌신—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과 이탈의 가능성의 한 가운데에서 견디어내야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불이행의 위험이 암시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8. 사심-없음—자아-잊어버림의 영(靈)-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 사람은 인정받음과 명예를 위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피할 수 없는 자아의 함성과 마주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만일 버리려는 그 어떤 자아-일생도 없었다면, 신성한 일생을 역동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만일

and love triumphs.

3:5.4 (51.3) Said Jesus: “My Father, who gave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As you glimpse the manifold workings and view the staggering immensity of God’s well-nigh limitless creation, you may falter in your concept of his primacy, but you should not fail to accept him as securely and everlastingly enthroned at the Paradise center of all things and as the beneficent Father of all intelligent beings. There is but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in all,”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consist.”

3:5.5 (51.4) The uncertainties of life and the vicissitudes of existence do not in any manner contradict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God. All evolutionary creature life is beset by certain *inevabilities*. Consider the following:

3:5.6 (51.5) 1. Is *courage* — strength of character — desirable? Then must man be reared in an environment which necessitates grappling with hardships and reacting to disappointments.

3:5.7 (51.6) 2. Is *altruism* — service of one’s fellows — desirable? Then must life experience provide for encountering situations of social inequality.

3:5.8 (51.7) 3. Is *hope* — the grandeur of trust — desirable? Then human existence must constantly be confronted with insecurities and recurrent uncertainties.

3:5.9 (51.8) 4. Is *faith* — the supreme assertion of human thought — desirable? Then must the mind of man find itself in that troublesome predicament where it ever knows less than it can believe.

3:5.10 (51.9) 5. Is the *love of truth* and the willingness to go wherever it leads, desirable? Then must man grow up in a world where error is present and falsehood always possible.

3:5.11 (51.10) 6. Is *idealism* — the approaching concept of the divine — desirable? Then must man struggle in an environment of relative goodness and beauty, surroundings stimulative of the irrepressible reach for better things.

3:5.12 (51.11) 7. Is *loyalty* — devotion to highest duty — desirable? Then must man carry on amid the possibilities of betrayal and desertion. The valor of devotion to duty consists in the implied danger of default.

3:5.13 (51.12) 8. Is *unselfishness* — the spirit of self-forgetfulness — desirable? Then must mortal man live face to face with the incessant clamoring of an inescapable self for recognition and honor. Man could not dynamically choose the divine life if there were no self-life to forsake. Man could never lay

대비에 의하여 선(善)을 드높이고 차별화 하는 그 어떤 잠재적 악(惡)이 없었다면, 사람은 정의(正義)위에 구원하는 손잡이를 결코 놓을 수가 없다.

9. 기쁨—행복에 대한 만족감—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가능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와 대비되는 다른 쪽인 고통과 그리고 고난 받을 가망이 언제나-현존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야만 한다.

우주에 두루, 각 단위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부분의 생존은 전체의 계획 그리고 목적과의 협동,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전심의 욕구와 완전히 자진하는 마음에 의존한다. 잘못(어리석은 심판의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능존재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그들의 완전한 거주민들을 갖는 10억 개의 완전한 세계들이 있지만, 진화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잘못을 범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체험이 없는 지능존재는 처음에는 도저히 한결같이 현명할 수 없다. 오류인 판단(악)의 가능성은 인간 의지가 의식적으로 시인하고 고의적으로 비도덕적 판단을 앞먼서 포용할 때에만 죄가 된다.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신성한 우주의 완전성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하보나 세계들의 거주민들은 선택의 자극으로서 상대적 가치 차원이라는 잠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는 그리고 생각을-강요하는 전체 도덕적 상황들이 없을 때에도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완전한 존재들은, 도덕적 본성과 영적 지위에 있어서, 실존의 사실이라는 이유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천적인 지위 안에서만 체험적으로 진보를 이룩한다. 필사 사람은 상승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기 지위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소망에 의해 얻는다. 인간 마음이 파악하고 인간 혼이 획득하는 신성한 모든 것은 체험적 달성이다; 그것은 개인적 체험의 실체이고, 따라서 하보나의 잘못됨이 없는 개인성들의 선천적인 선(善)과 정의로움과는 대조적인 독특한 재산이다.

하보나의 창조체들은 선천적으로 용감하지만, 그들은 인간 감각에서는 용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즐거운 미래를 기대하는 자들이지만, 불확실한 진화 구체에 속한, 믿음 지닌 필사자들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희망에 부풀지는 않는다. 그들은 우주의 안정성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입구까지 의지하여 상승하는 구원의 신앙에 대하여는 전혀 이방인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것의 혼-구원 본질특성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들은 활기 넘치는 선택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그 황홀경에 대해서는

saving hold on righteousness if there were no potential evil to exalt and differentiate the good by contrast.

3:5.14 (51.13) 9. Is *pleasure* — the satisfaction of happiness — desirable? Then must man live in a world where the alternative of pain and the likelihood of suffering are ever-present experiential possibilities.

3:5.15 (52.1) Throughout the universe, every unit is regarded as a part of the whole. Survival of the part is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the plan and purpose of the whole, the wholehearted desire and perfect willingness to do the Father's divine will. The only evolutionary world without error (the possibility of unwise judgment) would be a world without *free* intelligence. In the Havona universe there are a billion perfect worlds with their perfect inhabitants, but evolving man must be fallible if he is to be free. Free and inexperienced intelligence cannot possibly at first be uniformly wise. The possibility of mistaken judgment (evil) becomes sin only when the human will consciously endorses and knowingly embraces a deliberate immoral judgment.

3:5.16 (52.2) The full appreciat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inherent in the perfection of the divine universe. The inhabitants of the Havona worlds do not require the potential of relative value levels as a choice stimulus; such perfect beings are able to identify and choose the good in the absence of all contrastive and thought-compelling moral situations. But all such perfect beings are, in moral nature and spiritual status, what they are by virtue of the fact of existence. They have experientially earned advancement only within their inherent status. Mortal man earns even his status as an ascension candidate by his own faith and hope. Everything divine which the human mind grasps and the human soul acquires is an experiential attainment; it i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and is therefore a unique possession in contrast to the inherent goodness and righteousness of the inerrant personalities of Havona.

3:5.17 (52.3) The creatures of Havona are naturally brave, but they are not courageous in the human sense. They are innately kind and considerate, but hardly altruistic in the human way. They are expectant of a pleasant future, but not hopeful in the exquisite manner of the trusting mortal of the uncertain evolutionary spheres. They have faith in the stability of the universe, but they are utter strangers to that saving faith whereby mortal man climbs from the status of an animal up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y love the truth, but they know nothing of its soul-saving qualities. They are idealists, but they were born that way; they are wholly ignorant of the ecstasy of becoming such by exhilarating choice. They are loyal, but they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들은 충성되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쳐서, 전심으로 그리고 총명하게 의무에 헌신하는 전율은 결코 체험한 적이 없다. 그들은 사심-없이, 호전적인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함으로, 그런 차원의 체험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기쁨을 즐기지만, 그러나 잠재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기쁨의 그 달콤함은 이해하지 못한다.

제 6 장. 아버지의 시원성(始原性)

신성한 자아없음, 더할 나위 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우주 아버지는 권한을 양도하시고 힘을 위임하시지만, 그는 여전히 시원적이시다; 그의 손은 우주의 영역들의 환경에 대한 만능의 지렛대 위에 있다; 그는 모든 최종 결정들을 유보하였으며 밖으로 뻗친, 소용돌이치는, 그리고 항상-돌고 있는 창조의 복지와 운명에 대한, 도전 받을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그의 영원한 목적의 만능의 거부권을 조금도 틀림없이 행사한다.

하느님의 주권은 무제한적이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근본적 사실이다. 우주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주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자아-실존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는 창조의 작품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창조자의 뜻에 종속된다. 하느님의 뜻은 신성한 진리, 살아있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진화하는 우주의 완전하게 되는 창조계는 선함—신성에 가까움—과; 잠재적 악—신성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특징되어 진다.

모든 종교 철학은, 조만간에, 통합된 우주 통치의 개념, 한 하느님의 개념에 도달한다. 우주 원인들은 우주 결과들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 생명의 그리고 우주의 마음의 흐름들의 근원은 그들 현시활동의 차원들보다 높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마음은 더 낮은 계층의 실존을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상급 차원의 생각과 목적 있는 의지의 실체를 깨달음으로써만 정말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 존재로서의 사람은 우주 아버지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기계론적 철학자들은 우주적이고 주권적 의지, 그가 그토록 깊숙하게 숭배하는 우주 법칙의 정교한 노작에서 작용하는, 바로 그 주권적 의지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것처럼 선언한다. 그가 그러한 법칙들이 자아-행동적이고 자아-설명적이 되어야 한다고 착상할 때, 기계론자는 법칙의-창조자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존경을 보내고 있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대한 개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느님을 인간화시키는 일은 큰 실책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관념을 완벽하게 기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괴로워하시는가? 나는

have never experienced the thrill of wholehearted and intelligent devotion to duty in the face of temptation to default. They are unselfish, but they never gained such levels of experience by the magnificent conquest of a belligerent self. They enjoy pleasure, but they do not comprehend the sweetness of the pleasure escape from the pain potential.

6. THE FATHER'S PRIMACY

3:6.1 (52.4) With divine selflessness, consummate generosity, the Universal Father relinquishes authority and delegates power, but he is still primal; his hand is on the mighty lev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universal realms; he has reserved all final decisions and unerringly wields the all-powerful veto scepter of his eternal purpose with unchallengeable authority over the welfare and destiny of the outstretched, whirling, and ever-circling creation.

3:6.2 (52.5) The sovereignty of God is unlimited; it is the fundamental fact of all creation. The universe was not inevitable. The universe is not an accident, neither is it self-existent. The universe is a work of creation and is therefore wholly subject to the will of the Creator. The will of God is divine truth, living love; therefore are the perfecting creation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characterized by goodness — nearness to divinity; by potential evil — remoteness from divinity.

3:6.3 (53.1) All religious philosophy, sooner or later, arrives at the concept of unified universe rule, of one God. Universe causes cannot be lower than universe effects. The source of the streams of universe life and of the cosmic mind must be above the levels of their manifestation. The human mind cannot be consistently explained in terms of the lower orders of existence. Man's mind can be truly comprehended only by recognizing the reality of higher orders of thought and purposive will. Man as a moral being is inexplicable unless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s acknowledged.

3:6.4 (53.2) The mechanistic philosopher professes to reject the idea of a universal and sovereign will, the very sovereign will whose activity in the elaboration of universe laws he so deeply reverences. What unintended homage the mechanist pays the law-Creator when he conceives such laws to be self-acting and self-explanatory!

3:6.5 (53.3) It is a great blunder to humanize God, except in the concept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but even that is not so stupid as completely to *mechanize* the idea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3:6.6 (53.4) Does the Paradise Father suffer? I do

알지 못한다. 창조자 아들들은 필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한정된 감각에서 볼 때 괴로워하신다. 나는 우주 아버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런지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아마도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해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개별존재성 그리고 그의 영원한 본성의 다른 증여들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필사 종족들에 대해 “너희의 모든 고통들 속에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동정적인 납득을 의심할 여지없이 체험 하신다; 그는 정말로 괴로워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주들의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는 힘, 형태, 에너지, 과정, 원형틀, 원칙, 현존, 그리고 이상화된 실체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이다; 그는 개인이다; 그는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고, 신성에 대한 자아-의식을 체험하며, 창조적 마음의 명령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의 실현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의 우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현시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더욱 개인적인 이 특색들 전체는, 너희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의, 그가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었던 동안에, 증여 삶 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것들을 살피봄으로써 더 잘 납득될 수 있다.

아버지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아들 하느님은 사람들을 섬기며; 영 하느님은, 영 하느님의 은혜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아들 하느님들이 정해놓은 방법들에 의해 아버지 하느님을 발견하는 늘-상승하는 모험을 하도록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준다.

[우주 아버지의 계시를 발표하도록 예정된 신성한 조연자로서, 나는 연이어서 신(神)의 속성들에 대한 이 글을 써왔다.]

not know. The Creator Sons most certainly can and sometimes do, even as do mortals.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suffer in a modified sense. I think the Universal Father does, but I cannot understand *how*; perhaps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or through the individualit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other bestowals of his eternal nature. He has said of the mortal races, “In all your afflictions I am afflicted.” He unquestionably experiences a fatherly and sympathetic understanding; he may truly suffer, but I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thereof.

3:6.7 (53.5) The infinite and eternal Ru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power, form, energy, process, pattern, principle, presence, and idealized reality. But he is more; he is personal; he exercises a sovereign will, experiences self-consciousness of divinity, executes the mandates of a creative mind, pursues the satisfaction of the realization of an eternal purpose, and manifests a Father's love and affection for his universe children. And all these more personal traits of the Father can be better understood by observing them as they were revealed in the bestowal life of Michael, your Creator Son, while he was incarnated on Urantia.

3:6.8 (53.6) God the Father loves men; God the Son serves men; God the Spirit inspires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to the ever-ascending adventure of finding God the Father by the ways ordained by God the Sons through the ministry of the grace of God the Spirit.

3:6.9 (53.7) [Being the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 have continued with this statement of the attributes of Deity.]

제 4 편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 003

유랜시아 책

005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4 편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아버지의 우주 태도

제 2 장. 하느님과 자연

제 3 장. 하느님의 변치 않는 성격

제 4 장. 하느님에 대한 실현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PAPER 4

GOD'S RELATION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niverse Attitude of the Father

2. God and Nature

3. God's Unchanging Character

4. The Realization of God

5. Erroneous Ideas of God

소개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의 우주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에 대하여, 그가 모든 시간에 두루 이행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 의지에 따라 우주들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모든-지혜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그들의 최고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 실제로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의 고귀한 시민들도 신(神)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성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완전한 중앙우주인 하보나를 창조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신성한 본성의 만족이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된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를 향해가는 도중의 시간 순례자들을 위한 완결하는 학교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주들을 위한 원형을 창조로서 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러한 천상의 창조는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자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의 달성 후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앞날의 일을 위한 연이은 훈

INTRODUCTION

4:0.1 (54.1) THE Universal Father has an eternal purpose pertaining to th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phenomena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ch he is executing throughout all time. God created the universes of his own free and sovereign will, and he created them in accordance with his all-wise and eternal purpose. It is doubtful whether anyone except the Paradise Deities and their highest associates really knows very much about the eternal purpose of God. Even the exalted citizens of Paradise hold very diverse opinions about the nature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Deities.

4:0.2 (54.2) It is easy to deduce that the purpose in creating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of Havona was purely the satisfaction of the divine nature. Havona may serve as the pattern creation for all other universes and as the finishing school for the pilgrims of time on their way to Paradise; however, such a supernal creation must exist primarily for the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the perfect and infinite Creators.

4:0.3 (54.3) The amazing plan for perfecting evolutionary mortals and, after their attainment of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providing

련을 제공하는 놀라운 계획이, 현재로서는, 일곱 초우주들과 그들의 여러 종속부서들의 주요한 일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을 영성화 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상승 계획은 결코 우주 지능존재들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다. 정말로, 시간을 지배하고 천상무리들의 에너지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매혹적인 수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제 1 장. 아버지의 우주 태도

오랫동안 유란시아의 거주민은 하느님의 섭리를 잘못 알아왔다. 너희 세계에 대한 신성한 작용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유치하고 독단적인 물질적 보살핌이 아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상호 연결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에게 행하는 하느님의 일들에 대한 너희 개념에서, 우주의 표어가 진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차원까지 나아갈 수는 없겠는가? 긴 세월 동안 인간 종족은 그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 이 모든 수천 년 동안 섭리는 진보적인 진화 계획을 수행해 왔다. 실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잘못된 개념 속에서만 그러하다. 신성한 섭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된 인간적 진보에 대하여 결코 정 반대의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섭리는 최극 입법자의 불변하는 완전한 본성과 항상 일치한다.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그의 계명은 옳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바로 하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 안에 언제까지나 확립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이어지며; 당신이 땅을 지으셨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창조자 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목적을 유지시키고 자기 창조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세들과 개인성들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 아래는 영속하는 방패가 있다.” “지고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이다.” “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하여 선함을 이루는 것을 안다,” “이는 주님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보시고, 그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신의 힘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들이 탄생될 때, 그는 “자기 아들들을 내보내며 그들은 창조된다.”

further training for some undisclosed future work, does seem to be, at present, one of the chief concer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ir many subdivisions; but this ascension scheme for spiritualizing and training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is by no means the exclusive occupation of the universe intelligences. There are, indeed, many other fascinating pursuits which occupy the time and enlist the energies of the celestial hosts.

1. THE UNIVERSE ATTITUDE OF THE FATHER

4.1.1 (54.4) For ages the inhabitants of Urantia have misunderstood the providence of God. There is a providence of divine outworking on your world, but it is not the childish, arbitrary, and material ministry many mortals have conceived it to be. The providence of God consists in the interlocking activities of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spirits who, in accordance with cosmic law, unceasingly labor for the honor of God and for the spiritual advancement of his universe children.

4.1.2 (54.5) Can you not advance in your concept of God's dealing with man to that level where you recognize that the watchword of the universe is *progress*? Through long ages the human race has struggled to reach its present position. Throughout all these millenniums Providence has been working out the plan of progressive evolution. The two thoughts are not opposed in practice, only in man's mistaken concepts. Divine providence is never arrayed in opposition to true human progress, either temporal or spiritual. Providence is always consistent with the unchanging and perfect nature of the supreme Lawmaker.

4.1.3 (55.1) “God is faithful” and “all his commandments are just.” “His faithfulness is established in the very skies.” “Forever, O Lord, your word is settled in heaven. Your faithfulness is to all generations; you have established the earth and it abides.” “He is a faithful Creator.”

4.1.4 (55.2) There is no limitation of the forces and personalities which the Father may use to uphold his purpose and sustain his creatures. “The eternal God is 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Behold, he who keeps us shall neither slumber nor sleep.”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ver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s.”

4.1.5 (55.3) Go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when new worlds are born, he “sends forth his Sons and they are created.” God

하느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하느님은 모든 물질적 물체들과 모든 영적 존재들을 계속해서 지탱하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외견상 불안정한 그 한가운데에 안정성이 있다. 별들의 영역에 있는 에너지 격변과 물리적 변동 한가운데에는 근거(根底)를 이루는 질서와 안전함이 있다.

우주 아버지는 우주들에 대한 관리로부터 물러나신 적이 없다; 그는 활동하지 않는 신(神)이 아니다. 만일 하느님이 모든 창조의 현재 유지자에서 물러난다면, 우주 붕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느님이 없으면, 실체로서 그러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도, 과거의 먼 시대처럼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하느님은 계속 지탱하신다. 신성한 범위는 영원의 순환계 둘레까지 확장된다. 우주는 태엽이 감긴 만큼 작동하다가 기능을 멈추는 그러한 시계처럼 감겨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 아버지는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 하느님의 일은 영적일 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이다. “그는 북쪽을 빈 공간 너머로 힘껏 뻗게 하시고 땅을 무(無)에 매다신다.”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는 궁극적 조화를 발견할 수 있고 우주 관리·행정의 일상적인 관련사들 속에서 멀리-도달하고 그리고 심오한 조화-협동을 탐지할 수 있다. 필사자 마음에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가 납득하기로는 질서 정연하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많은 것들이 우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지역 우주들과 초우주들의 인지된 기세, 에너지, 마음, 모론시아, 영 그리고 개인성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그리고 다소 정통하다. 나는 어떻게 이들 대리자들과 개인성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며, 대우주의 인가받은 영 지능존재들의 하는 일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알아낼 수 없는 조화우주 반응에 끊임없이 마주치고 있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세, 에너지, 지능 그리고 영들의 상호-연관된, 외견상 우연한 협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나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크계는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에서 직접 생겨나는 모든 현상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나의 곤혹스러움은 그들의 신비로운 조화-협동, 세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숨겨져 보이며 지는 것에 부딪힘으로써 생겨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대체하고 마음을 초월하며 영을 산출시킨다. 나는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현존과 행위의 탓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복잡한 활동행위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동하고 종종 혼란을 겪는다.

not only creates, but he “preserves them all.” God constantly upholds all things material and all beings spiritual. The universes are eternally stable. There is stability in the midst of apparent instability. There is an underlying order and security in the midst of the energy upheavals and the physical cataclysms of the starry realms.

4:1.6 (55.4) The Universal Father has not withdrawn from the management of the universes; he is not an inactive Deity. If God should retire as the present upholder of all creation, there would immediately occur a universal collapse. Except for God,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reality*. At this very moment, as during the remote ages of the past and in the eternal future, God continues to uphold. The divine reach extends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The universe is not wound up like a clock to run just so long and then cease to function; all things are constantly being renewed. The Father unceasingly pours forth energy, light, and life. The work of God is literal as well as spiritual.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empty space and hangs the earth upon nothing.”

4:1.7 (55.5) A being of my order is able to discover ultimate harmony and to detect far-reaching and profound co-ordination in the routine affairs of universe administration. Much that seems disjointed and haphazard to the mortal mind appears orderly and constructive to my understanding. But there is very much going on in the universes that I do not fully comprehend. I have long been a student of, and am more or less conversant with, the recognized forces, energies, minds, morontias, spirits, and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s. I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how these agencies and personalities operate, and I am intimately familiar with the workings of the accredited spirit intelligences of the grand universe. Notwithstanding my knowledge of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s, I am constantly confronted with cosmic reactions which I cannot fully fathom. I am continually encountering apparently fortuitous conspiracies of the interassociation of forces, energies, intellects, and spirits, which I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4:1.8 (55.6) I am entirely competent to trace out and to analyze the working of all phenomena directly resulting from the functioning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o a large extent, the Isle of Paradise. My perplexity is occasioned by encountering what appears to be the performance of their mysterious co-ordinates,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ese Absolutes seem to supersede matter, to transcend mind, and to supervene spirit. I am constantly confused and often perplexed by my inability to comprehend these complex transactions which I attribute to the presences and performanc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이 절대자들은 우주 안에서 널리, 충분히-게 시되지는-않은 현존됨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물리학자, 철학자들 또는 심지어 종교인들에게까지도, 공간 잠재력 현상 속에서 그리고 다른 초(超)궁극체들의 역할 속에서, 기세, 개념 또는 영의 시원(始原)존재들이, 어떻게 최극 조절 그리고 궁극적 가치들을 포함하는, 한 복합 실체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응답하는가에 관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조화우주의 사건들의 전체 구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는 또한 유기적 합일체가 있다.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이 살아있는 현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진 미완성의 내재성은, 겉보기에 관련이 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랄 만큼 우연한 조화-협동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 때때로 불가해하게 현시된다. 이것은 섭리의 기능—최극존재와 공동 행위자의 영역—임이 틀림없다.

나는 변화 많고 이렇게 잡다하고 겉보기에 희망 없이 혼동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과 형식의 조화-협동과 상호-연관에 대한 이 멀리-퍼지고 일반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통제이고, 그러면서 어김없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천사들의 행복을 위하여 결과를 이룬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화우주의 외견상 “우연한 현상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자들의 영원한 조종 속에서의 무한자의 시간-공간 모험의 유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제 2 장. 하느님과 자연

제한된 감각에서 볼 때, 자연은 하느님의 물리적 성향이다. 하느님의 행위성이나 활동은 지역 우주, 별자리,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들과 진화의 원형들들에 의해 분별화되고 일시적으로 변경된다. 하느님은 널리-퍼지는 주(主)우주에 두루 명확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 활동의 원형들을, 진화적으로 전개되는 유한한 구체적인 투사들의 지역적 목표, 의도 그리고 계획에 맞추어, 각 우주, 별자리, 체계, 행성, 그리고 개인성의 조화-협동되고 균형 잡힌 행위성에 기여하도록, 변경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필사 사람이 그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신(神)의 숨어있는 기초와 기본 배경 그리고, 지역우주와 별자리와 체계와 행성 기세들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어 왔고 수행되고 있는 지역 계획과 목적과 원형들과

Deity Absolute, and the Universal Absolute.

4:1.9 (56.1) These Absolutes must be the not-fully-revealed presences abroad in the universe which, in the phenomena of space potency and in the function of other superultimates, render it impossible for physicists, philosophers, or even religionists to predict with certainty as to just how the primordials of force, concept, or spirit will respond to demands made in a complex reality situation involving supreme adjustments and ultimate values.

4:1.10 (56.2) There is also an organic unit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ich seems to underlie the whole fabric of cosmic events. This living presence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this Immanence of the Projected Incomplete, is inexplicably manifested ever and anon by what appears to be an amazingly fortuitous co-ordination of apparently unrelated universe happenings. This must be the function of Providence — the realm of the Supreme Being and the Conjoint Actor.

4:1.11 (56.3)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it is this far-flung and generally unrecognizable control of the co-ordination and interassociation of all phases and forms of universe activity that causes such a variegated and apparently hopelessly confused medley of physical, mental, moral, and spiritual phenomena so unerringly to work out to the glory of God and for the good of men and angels.

4:1.12 (56.4) But in the larger sense the apparent “accidents” of the cosmos are undoubtedly a part of the finite drama of the time-space adventure of the Infinite in his eternal manipulation of the Absolutes.

2. GOD AND NATURE

4:2.1 (56.5) Nature is in a limited sense the physical habit of God. The conduct, or action, of God is qualified and provisionally modified by the experimental plans and the evolutionary patterns of a local universe, a constellation, a system, or a planet. God acts in accordance with a well-defined, unchanging, immutable law throughout the wide-spreading master universe; but he modifies the patterns of his action so as to contribute to the co-ordinate and balanced conduct of each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planet, and personalit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objects, aims, and plans of the finite projects of evolutionary unfolding.

4:2.2 (56.6) Therefore, nature, as mortal man understands it, presents the underlying foundation and fundamental background of a changeless Deity and his immutable laws, modified by, fluctuating because of, and experiencing

그리고 조건들의 활동인, 그 활동에 의하여 변경되고, 그 활동을 통하여 동요를 체험하는, 그의 불변 법칙을 나타내 보인다.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법칙이 네바돈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들은 이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확립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 모든 것 이외에, 이 법칙들의 작용은 너희 행성에 거주하는 그리고 사타니아라는 너희의 직계 행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잘못과 불이행과 반란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자연은 두 가지 조화우주 요소의 시간-공간 결과이다. 즉: 첫째는, 파라다이스 신(神)의 불변함, 완전성 그리고 정당함이며 두 번째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외(加外)-파라다이스 창조체들의, 실험에 의한 계획, 집행상의 실책,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 발육의 불충분함, 그리고 지혜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균일하고 불변이며 장엄하고 굉장한 완전성의 끈을 영원함의 순환계로부터 가져오지만; 각 우주, 각 행성, 그리고 각 개별존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자연은 진화 체계와 우주에 속한 창조체들의 행위, 오류 그리고 불충에 의해 변경되고 분별화되며 아마도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저변은 안정되어 있지만, 항상 변화하는, 게다가 변덕스러운, 분위기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한 지역우주의 운영과정에 따라 바뀌어져야만 한다.

자연은 미완성된 우주들의 미(未)완결, 악 그리고 죄에 의해 나뉜 파라다이스의 완전성이다. 이 몫은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 둘 모두를,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둘 모두를 그렇게 나타낸다. 계속되는 진화는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내용을 증강시킴으로써 그리고 악, 잘못 그리고 상대적 실체의 부조화를 줄임으로써 자연을 변경한다.

하느님은 자연 속에 또는 자연의 기세들 중 어떤 것 속에도 직접 계시지 않는데, 이는 자연의 현상은 점진적 진화의 불완전성의 초(超)부담(負擔)이며, 때로는 하느님의 우주 법칙인 파라다이스 기초에 대한 반항적인 반란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란시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에 나타날 때, 자연은 모든-지혜 그리고 무한하신 하느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 참된 표상, 신실한 묘사가 결코 될 수 없다.

너희 세계에서 자연은 지역우주의 진화 계획에 의한 완전성의 법칙에서의 하나의 분별된-자격이다. 자연은 어떤 한계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가득 스며든 분별화된 감응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자연이 우주적이고, 따라서 신성한 힘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해서 자연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억지인가! 자연은 또한 조화 우주 진화 안에서 우주 실험의 발육, 성장, 그리고

upheavals through, the working of the local plans, purposes, patterns, and conditions which have been inaugurated and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local universe, constellation, system, and planetary forces and personalities. For example: As God's laws have been ordained in Nebadon, they are modified by the plans established by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of this local universe; and in addition to all this the operation of these laws has been further influenced by the errors, defaults, and insurrections of certain beings resident upon your planet and belonging to your immediate planetary system of Satania.

4:2.3 (56.7) Nature is a time-space resultant of two cosmic factors: first, the immutability, perfection, and rectitude of Paradise Deity, and second, the experimental plans, executive blunders, insurrectionary errors, incompleteness of development, and imperfection of wisdom of the extra-Paradise creature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Nature therefore carries a uniform, unchanging, majestic, and marvelous thread of perfection from the circle of eternity; but in each universe, on each planet, and in each individual life, this nature is modified, qualified, and perchance marred by the acts, the mistakes, and the disloyalties of th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systems and universes; and therefore must nature ever be of a changing mood, whimsical withal, though stable underneath, a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of a local universe.

4:2.4 (57.1) Nature is the perfection of Paradise divided by the incompleteness, evil, and sin of the unfinished universes. This quotient is thus expressive of both the perfect and the partial, of both the eternal and the temporal. Continuing evolution modifies nature by augmenting the content of Paradise perfection and by diminishing the content of the evil, error, and disharmony of relative reality.

4:2.5 (57.2) God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nature or in any of the forces of nature, for the phenomenon of nature is the superimposition of the imperfections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sometimes, the consequences of insurrectionary rebellion, upon the Paradise foundations of God's universal law. As it appears on such a world as Urantia, nature can never be the adequate expression, the true representation, the faithful portrayal, of an all-wise and infinite God.

4:2.6 (57.3) Nature, on your world, is a qualification of the laws of perfection by the evolutionary plans of the local universe. What a travesty to worship nature because it is in a limited, qualified sense pervaded by God; because it is a phase of the universal and, therefore, divine power! Nature also is a manifestation of the unfinished, the incomplete, the imperfect outworkings of the

진보에서의 미(未)완결된 것, 미완성된 것의 현시 활동이다.

자연 세계의 외견상 결함들이, 하느님의 성격 안에서 그에 대응되는 어떠한 결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관찰된 불완전들은 무한함을 영화처럼 묘사하는 계속-움직이는 필름 상영에서의 불가피한 정지-순간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람의 유한 마음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체를 스쳐 지나가며 얼핏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성-연속성에 대한 바로 이 결함-중단이다. 신성의 물질적 현시활동들이 사람의 진화적 마음에는 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필사 사람이 자연의 현상을 자연적 눈, 시간 세계에서 보완되는 대용품인, 모론시아 모타 혹은 계시의 도움을 얻지 않고, 인간적 시각을 통하여 보기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서 자연의 굴절된 모습을 가져오게 하는 무수한 창조체들의 반란,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으며, 그 모습은 시들어 버렸다. 결단코, 자연은 하느님이 아니다.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제 3 장. 하느님의 변치 않는 성격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은 하느님을 자기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해 왔다.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런 적이 없었으며,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창조자 아들이 사람을 행성 창조에서의 걸작이 되고,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의 존재가 자신의 저열한 욕망에 지배당하는 모습, 그리고 나무, 돌, 금 그리고 이기적 야망의 우상 앞에 절하는 광경은—이러한 더러운 장면들이 하느님과 그의 아들들이 사람을 위하여 질투가 일어나서 동요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느님은 이러한 인간 감정들의 감각에서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반응들을 납득하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다. 이러한 정서들은 비열하고 경멸을 받을만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에서의 가치도 도저히 될 수가 없고, 신성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자비로운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느님 납득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신의 멀리-미치는 영향들에 기인한다. 죄로 인한 격리됨이 없는 세계들의 경우에는, 진화 종족들이 우주 아버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관념들을 공식화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돈, 왜곡 그리고 일탈로부터 덜 고통받는다.

하느님은 언제까지나 행해 왔던, 지금 행하고

development, growth, and progress of a universe experiment in cosmic evolution.

4:2.7 (57.4) The apparent defects of the natural world are not indicative of any such corresponding defects in the character of God. Rather are such observed imperfections merely the inevitable stop-moments in the exhibition of the ever-moving reel of infinity picturization. It is these very defect-interruptions of perfection-continuity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finite mind of material man to catch a fleeting glimpse of divine reality in time and space.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divinity appear defective to the evolutionary mind of man only because mortal man persists in viewing the phenomena of nature through natural eyes, human vision unaided by morontia mota or by revelation, its compensatory substitute on the worlds of time.

4:2.8 (57.5) And nature is marred, her beautiful face is scarred, her features are seared, by the rebellion, the misconduct, the mistic thinking of the myriads of creatures who are a part of nature, but who have contributed to her disfigurement in time. No, nature is not God. Nature is not an object of worship.

3. GOD'S UNCHANGING CHARACTER

4:3.1 (57.6) All too long has man thought of God as one like himself. God is not, never was, and never will be jealous of man or any other be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Knowing that the Creator Son intended man to be the masterpiece of the planetary creation, to be the ruler of all the earth, the sight of his being dominated by his own baser passions, the spectacle of his bowing down before idols of wood, stone, gold, and selfish ambition — these sordid scenes stir God and his Sons to be jealous *for* man, but never of him.

4:3.2 (57.7) The eternal God is incapable of wrath and anger in the sense of these human emotions and as man understands such reactions. These sentiments are mean and despicable; they are hardly worthy of being called human, much less divine; and such attitudes are utterly foreign to the perfect nature and gracious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4:3.3 (58.1) Much, very much, of the difficulty which Urantia mortals have in understanding God is due to the far-reaching consequence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aligastia betrayal. On worlds not segregated by sin, the evolutionary races are able to formulate far better ideas of the Universal Father; they suffer less from confusion,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concept.

4:3.4 (58.2) God repents of nothing he has ever

있는, 언제까지나 행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는 만능이실 뿐 아니라 마참가지로 모든-지혜 이시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도와 잘못으로부터 자라난다; 하느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의 분별불가한 완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예지가 창조적 자유의지를 효력적으로 지도한다.

우주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밖으로 멀리 퍼져있는 우주들에서, 자신의 창조자 개인성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만든 의지 창조체들은, 그들의 불행한 선택에 의해, 때때로 그들의 창조자 부모들의 개인성 안에서 신성한 슬픔의 감정들을 일으킨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가 오류를 하지 않고, 후회를 품지도 않고, 슬픔을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주들의 영-달성 계획들 그리고 필사-상승 정책들에 의해 그토록 자유롭게 제공되어 온 도움으로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영적 차원에 도달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실패할 때 그의 가슴은 확실히 애통해 하신다.

아버지의 무한한 선함은 시간의 유한한 마음의 이해력을 초월한다; 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력적인 표현을 위하여 상대적인 악(죄가 아니라)에 대해 항상 대조될 수 있게 잘 제공되어야만 한다. 신성한 선의 완전성은 통찰력의 필사 불완전성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공간 운동의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것이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적 관계적-연합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성격은 무한하게 초인간적이다; 따라서 신성의 그러한 본성은,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 처럼, 그것이 사람의 유한 마음에 의해 신앙-파악될 수 있기 전이라도, 개인성구현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하느님에 대한 실현

하느님만이 전체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고정되고 자아-억제된 변함없는 존재인데, 밖이 없고 초월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미래도 없다. 하느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에너지(창조 영)이고 절대 의지이며, 이것들은 자아-실존적이며 보편적이다.

하느님이 자아-실존적이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다. 하느님의 바로 그 정체성은 변화와 반대된다.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불변이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성취하기 전에는, 하느님이 어떻게 단순함으로부터 복잡함으로, 일치로부터 변화로, 정지로부터 운동으로, 무한으로부터 유한으로, 신성한 것으로부터 인간으로, 그리고 합일체로부터 이원일체(二元一體) 그리고 삼원일체(三元一體)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불변함이 부동(不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절대에 대한

done, now does, or ever will do. He is all-wise as well as all-powerful. Man's wisdom grows out of the trials and errors of human experience; God's wisdom consists in the unqualified perfection of his infinite universe insight, and this divine foreknowledge effectively directs the creative free will.

4.3.5 (58.3) The Universal Father never does anything that causes subsequent sorrow or regret, but the will creatures of the planning and making of his Creator personalities in the outlying universes, by their unfortunate choosing, sometimes occasion emotions of divine sorrow in the personalities of their Creator parents. But though the Father neither makes mistakes, harbors regrets, nor experiences sorrows, he is a being with a father's affection, and his heart is undoubtedly grieved when his children fail to attain the spiritual levels they are capable of reaching with the assistance which has been so freely provided by the spiritual-attainment plans and the mortal-ascension policies of the universes.

4.3.6 (58.4) The infinite goodness of the Father i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of time; hence must there always be afforded a contrast with comparative evil (not sin) for the effective exhibition of all phases of relative goodness. Perfection of divine goodness can be discerned by mortal imperfection of insight only because it stands in contrastive association with relative imperfection in the relationships of time and matter in the motions of space.

4.3.7 (58.5) The character of God is infinitely superhuman; therefore must such a nature of divinity be personalized, as in the divine Sons, before it can even be faith-grasped by the finite mind of man.

4. THE REALIZATION OF GOD

4.4.1 (58.6) God is the only stationary, self-contained, and changeless being in the whole universe of universes, having no outside, no beyond, no past, and no future. God is purposive energy (creative spirit) and absolute will, and these are self-existent and universal.

4.4.2 (58.7) Since God is self-existent, he is absolutely independent. The very identity of God is inimical to change. “I, the Lord, change not.” God is immutable; but not until you achieve Paradise status can you even begin to understand how God can pass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from identity to variation, from quiescence to motion, from infinity to finitude, from the divine to the human, and from unity to duality and triunity. And God can thus modify the manifestations of his absoluteness because divine immutability does not imply immobility; God has will — he is will.

현시활동을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느님은 의지를 갖고 있다—그는 의지이다.

하느님은 절대적 자아-결정의 존재이다; 자아-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고, 그의 자유의지 행위들은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특성 본질들과 완전한 속성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최종적 선(善)의 존재로서 더 나아가 창조적 무한함의 한 자유로운 의지로서 우주에 관계하신다.

아버지-절대자는 중앙 그리고 완전한 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모든 창조자들의 아버지이다. 하느님은 개인성, 선(善), 그리고 수많은 다른 특징들을 사람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시지만, 의지의 무한함은 그에게만 있다. 하느님은 그의 창조적 행위들에 있어서 오직 그의 영원한 본성의 정서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의 명령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을 직접 선택하시고, 따라서 중앙우주는 천상의 완전성이다; 창조자 아들들이 자신의 신성, 심지어는 자신의 절대성의 위상들도 전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그것들은 아버지의 의지 무한함을 지도하는 지혜의 그 최종에 의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층의 아들관계에 있어서,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욱 활동적이 되며, 절대적이지는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신성하고 거의 궁극적이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그의 의지적인 자아-제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의 의지적인 절대성의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하느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일곱 차원들 전체에 가득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본성 전체는 그의 우주 창조체 가족에 대한 창조자의 관계에 종속된다. 우주들의 우주에서는 정확성이 삼위일체로서의 공의(公義)의 특징이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의 창조체들과 맺는 그의 광대한 가족 관계 전체에 있어서는 우주들의 하느님은 신성한 정서에 지배 받는다. 처음과 끝까지—영원히—무한한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명칭들 중에, 나는 모든 창조의 하느님을 우주 아버지로 묘사하도록 배워 왔다.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자유의지 행위는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며 지성으로만 인도되지도 않는다; 신성한 개인성은 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우주에 사랑으로 자신을 현시하는 것으로 정의(定義)된다. 그러므로 우주들의 창조체 개인성들에 대한 그의 모든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그리고 계속적인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은 그 단어의 가장 높은 의미에서 아버지이시다. 그는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에 의해 영원토록 동기를 부여받으며, 그 부드러운 본성은 사랑함과 사랑 받음 속에서 그것의 가장 강한 표현과 가장 큰 만족을 찾는다.

과학에 있어서, 하느님은 첫째원인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다; 철학에 있어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실

4:4.3 (58.8) God is the being of absolute self-determination; there are no limits to his universe reactions save those which are self-imposed, and his freewill acts are conditioned only by those divine qualities and perfect attributes which inherently characterize his eternal nature. Therefore is God related to the universe as the being of final goodness plus a free will of creative infinity.

4:4.4 (58.9) The Father-Absolute is the creator of the central and perfect universe and the Father of all other Creators. Personality, goodness, and numerous other characteristics, God shares with man and other beings, but infinity of will is his alone. God is limited in his creative acts only by the sentiments of his eternal nature and by the dictates of his infinite wisdom. God personally chooses only that which is infinitely perfect, hence the supernal perfection of the central universe; and while the Creator Sons fully share his divinity, even phases of his absoluteness, they are not altogether limited by that finality of wisdom which directs the Father's infinity of will. Hence, in the Michael order of sonship, creative free will becomes even more active, wholly divine and well-nigh ultimate, if not absolute. The Father is infinite and eternal, but to deny the possibility of his volitional self-limitation amounts to a denial of this very concept of his volitional absoluteness.

4:4.5 (59.1) God's absoluteness pervades all seven levels of universe reality. And the whole of this absolute nature is subject to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or to his universe creature family. Precision may characterize trinitarian justic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in all his vast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creatures of time the God of universes is governed by *divine sentiment*. First and last — eternally — the infinite God is a *Father*. Of all the possible titles by which he might appropriately be known, I have been instructed to portray the God of all creation as the Universal Father.

4:4.6 (59.2) In God the Father freewill performances are not ruled by power, nor are they guided by intellect alone; the divine personality is defined as consisting in spirit and manifesting himself to the universes as love. Therefore, in all his personal relations with the creatur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always and consistently a loving Father. God is a Father in the highest sense of the term. He is eternally motivated by the perfect idealism of divine love, and that tender nature finds its strongest expression and greatest satisfaction in loving and being loved.

4:4.7 (59.3) In science, God is the First Cause; in religion, the universal and loving Father; in philosophy, the one being who exists by himself,

존을 위하여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실존의 실체를 은혜롭게 수여한다. 그러나 과학의 첫째 원인 그리고 철학의 자아-실존적 합일체가 종교의 하느님,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존이 임하도록 보장하는 하느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한자의 개념을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神)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의 개인성과 그리고 신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느-때든지 파악할 수 있는 수용능력, 하느님에 대한 체험-관념을 경배한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간 삶에 대한 자각은, 인간적 한계들의 무서운 장면에 직면할 때 각각의 실존의 되풀이되는 에피소드에 감히 도전하는 그 창조체 신앙에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몸 속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우주들의 우주 아버지-절대자의 일부가, 살고 있다는 확실한 선언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신앙도 정복하는 승리”이다.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종교적 전통은 지나간 시대들의 하느님-아는 사람들의 체험을 불완전하게 보존한 기록이지만, 그러한 기록들은 종교적 삶을 위한 안내자로서 또는 우주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근원으로서로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한 고대의 믿음들은 원시인이 신화를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늘 변형되어 왔다.

하느님의 본성에 관한 유란시아에서의 가장 큰 혼돈의 근원들 중 하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성들 사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과 지역우주 창조자들 그리고 행정-관리자들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성스러운 책들이 실패함으로부터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납득했던 과거 섭리시대들 동안, 너희의 사제들과 선지자들은 행성영주들, 체계 주권자들, 별자리 아버지들, 창조자 아들들, 초우주 통치자들, 최극 존재, 그리고 우주 아버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생명운반자들 그리고 다양한 천사 계층들과 같은, 종속 개인성들의 메시지들 중 대부분이, 너희 기록들 속에서는,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나타내어 왔다. 유란시아의 종교적 생각은 신(神)의 연관 개인성들과 우주 아버지 자신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명칭 속에 포함되어 있다.

유란시아에 속한 민족은 하느님에 대한 원시적 개념들의 영향으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해오고 있다. 폭풍 속에서 날뛰며 돌아다니는 하느님들; 분노에 차서 땅을 흔들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때려눕히는; 굶주림과 홍수의 때에 불만의 심

not dependent on any other being for existence but beneficently conferring reality of existence on all things and upon all other beings. But it requires revelation to show that the First Cause of science and the self-existent Unity of philosophy are the God of religion, full of mercy and goodness and pledged to effect the eternal survival of his children on earth.

4:4.8 (59.4) We crave the concept of the Infinite, but we worship the experience-idea of God, our anywhere and any-time capacity to grasp the personality and divinity factors of our highest concept of Deity.

4:4.9 (59.5) The consciousness of a victorious human life on earth is born of that creature faith which dares to challenge each recurring episode of existence when confronted with the awful spectacle of human limitations, by the unflinching declaration: Even if I cannot do this, there lives in me one who can and will do it, a part of the Father-Absolut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at is “the victory which overcomes the world, even your faith.”

5. ERRONEOUS IDEAS OF GOD

4:5.1 (59.6) Religious tradition is the imperfectly preserved record of the experiences of the God-knowing men of past ages, but such records are untrustworthy as guides for religious living or as the source of true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al Father. Such ancient beliefs have been invariably altered by the fact that primitive man was a mythmaker.

4:5.2 (60.1)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confusion on Urantia concerning the nature of God grows out of the failure of your sacred books clearl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between Paradise Deity and the local universe creators and administrators. During the past dispensations of partial understanding, your priests and prophets failed clearly to differentiate between Planetary Princes, System Sovereigns, Constellation Fathers, Creator Sons, Superuniverse Rulers, the Supreme Being, and the Universal Father. Many of the messages of subordinate personalities, such as Life Carriers and various orders of angels, have been, in your records, presented as coming from God himself. Urantian religious thought still confuses the associate personalities of Deity with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so that all are included under one appellation.

4:5.3 (60.2) The people of Urantia continue to suffer from the influence of primitive concepts of God. The gods who go on a rampage in the storm; who shake the earth in their wrath and strike down men in their anger; who inflict their judgments of

판을 내리는—이들은 원시적 종교의 하느님들이 다; 그들은 살아서 우주들을 통치하시는 하느님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들은, 그러한 허구적 하느님들의 변덕스러움의 안내와 지배 아래에 우주가 놓여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하였던 그 시기의 유물이다. 그러나 필사 사람은, 최종 창조자들과 최종 통제자들의 행정-관리적 정책들과 행위성과 관련하는 한, 자신이 비교적 법칙과 질서가 갖추어진 영역 속에서 산다는 것을 실현하기 시작한다.

희생 제물들과 고행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림으로, 성난 하느님을 달래고, 감정이 상한 주님의 비위를 맞추고, 신(神)의 은혜를 얻으려는 야만스러운 관념은, 전혀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를 대표하며, 과학과 진리로 깨워진 시대에 맞지 않는 철학을 대표한다. 그러한 믿음들은 우주들 안에서 봉사하고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통치자들에게는 철저히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다.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가상적인 신성한 진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고 믿거나 고집부리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모세가 그의 순진한 베도원 추종자들의 원시적인 마음들 속에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동물들을 제례적 희생 제물로 대신하게 하였을 때 뚜렷한 진전을 이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달래질 수 없다는 옛날의 이교적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

너희 세계에 대한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는 한 행성 시대를 마감하는 상황 속에 본래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증여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는 긴 모험여행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 개인적 활동이 되게 되어 있었다. 그의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냉담함과 견고한 가슴이 그의 창조제들의 불운과 슬픔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의 죄 없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 가는 것을 보기까지,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성격에 반하여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그러나 유란시아의 거주민들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고대의 잘못들과 이교적 미신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종족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창조자 아들에 의해 그토록 숭고하게 묘사되었던, 그 모든 성격의 아름다움과 속성들의 사랑스러움으로 우주 아버지를 알도록 운명되어 있다.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displeasure in times of famine and flood — these are the gods of primitive religion; they are not the Gods who live and rule the universes. Such concepts are a relic of the times when men supposed that the universe was under the guidance and domination of the whims of such imaginary gods. But mortal man is beginning to realize that he lives in a realm of comparative law and order as far as concerns the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onduct of the Supreme Creators and the Supreme Controllers.

4:5.4 (60.3) The barbarous idea of appeasing an angry God, of propitiating an offended Lord, of winning the favor of Deity through sacrifices and penance and even by the shedding of blood, represents a religion wholly puerile and primitive, a philosophy unworthy of an enlightened age of science and truth. Such beliefs are utterly repulsive to the celestial beings and the divine rulers who serve and reign in the universes. It is an affront to God to believe, hold, or teach that innocent blood must be shed in order to win his favor or to divert the fictitious divine wrath.

4:5.5 (60.4) The Hebrews believed that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could be no remission of sin.” They had not found deliverance from the old and pagan idea that the Gods could not be appeased except by the sight of blood, though Moses did make a distinct advance when he forbade human sacrifices and substituted therefor, in the primitive minds of his childlike Bedouin followers, the ceremonial sacrifice of animals.

4:5.6 (60.5) The bestowal of a Paradise Son on your world was inherent in the situation of closing a planetary age; it was inescapable, and it was not mad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favor of God. This bestowal also happened to be the final personal act of a Creator Son in the long adventure of earning the experiential sovereignty of his universe. What a travesty upon the infinite character of God! this teaching that his fatherly heart in all its austere coldness and hardness was so untouched by the misfortunes and sorrows of his creatures that his tender mercies were not forthcoming until he saw his blameless Son bleeding and dying upon the cross of Calvary!

4:5.7 (60.6) But the inhabitants of Urantia are to find deliverance from these ancient errors and pagan superstitions respecting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velation of the truth about God is appearing, and the human race is destined to know the Universal Father in all that beauty of character and loveliness of attributes so magnificently portrayed by the Creator Son who sojourned on Urantia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4:5.8 (61.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5 편 개별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 004

유란시아 책

006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5 편 개별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

제 2 장. 하느님의 현존

제 3 장. 참된 경배

제 4 장. 종교에서의 하느님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의식(意識)

제 6 장. 개인성의 하느님

PAPER 5

GOD'S RELATION TO THE
INDIVIDUA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roach to God

2. The Presence of God

3. True Worship

4. God in Religion

5. The Consciousness of God

6. The God of Personality

소개

만일 사람의 유한한 마음이, 우주 아버지처럼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장엄한 하느님이 어떻게 무한한 완전성 속에 있는 그의 영원한 거처로부터 내려오셔서 개별적 인간 창조체와 형제우에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유한한 지성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실제적 단편이, 모든 정상-마음을 가진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식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그 지성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의 진리 위에서 신성한 동료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신(神)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의 교제를 시도하기 위하여, 이 영적-실체 현존(顯存)에 관한 혼의 깊은 사색에서의 그 자신의 내적 체험보다 더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함을 그의 여섯 절대 조화-협동자들의 실존적 실체들에 두루 분배해 왔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는 자신의 전(前)개인적 단편의 대리자를 통하여 창조의 어떤 부분이나 위상 또는 종류와 직접적인 개인적 접촉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은 또한 우주들의 우주의 살아있는 창조체들과 신성한 창조자들에게 개인성을 증여하는 특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왔고, 동시에 더 나아가 그는 개인성 순

INTRODUCTION

5:0.1 (62.1) IF THE finite mind of man is unable to comprehend how so great and so majestic a God as the Universal Father can descend from his eternal abode in infinite perfection to fraternize with the individual human creature, then must such a finite intellect rest assurance of divine fellowship upon the truth of the fact that an actual fragment of the living God resides within the intellect of every normal-minded and morally conscious Urantia mortal.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are a part of the eternal Deity of the Paradise Father. Man does not have to go farther than his own inner experience of the soul's contemplation of this spiritual-reality presence to find God and attempt communion with him.

5:0.2 (62.2) God has distributed the infinity of his eternal nature throughout the existential realities of his six absolute co-ordinates, but he may, at any time, make direct personal contact with any part or phase or kind of creation through the agency of his prepersonal fragments. And the eternal God has also reserved to himself the prerogative of bestowing personality upon the divine Creators and the living creatures of the universe of

환회로를 통하여 이 개인적 존재들 전체와 직접적인 그리고 어버이로서의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보유하여 왔다.

universes, while he has further reserved the prerogative of maintaining direct and parental contact with all these personal beings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제 1 장.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

유한 창조체가, 무한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데, 아버지의 무관심에서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들의 유한함과 물질적 한계 때문이다. 우주 실존 중 가장 높은 개인성과 창조된 지능존재들 중 가장 낮은 집단들 사이에 있는 영적 차이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지능존재의 낮은 계층들이 아버지 자신의 현존 속으로 즉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우주 아버지의 현존에 대해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필사 사람의 앞에, 그가 가능성의 영역 내에서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 속으로의 안전한 행위성을 일관되게 요구할 수 있기 전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사람은 일곱 주(主) 영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 시각을 이룩하게 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차례 전환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숨어있지 않는다; 그는 독단적으로 은둔해 있지 않으시다. 그는 자신의 우주 권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신성한 지혜의 자원들을 끝임 없는 노력으로 동원하여 왔다.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창조된 존재의 관계적-연합을 그가 갈망하도록 만든 그의 사랑의 장엄에는 무한한 숭고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대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유한한 개인성 그리고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너희 안에 있는 선천적 한계들이, 너희가 필사상승의 여행 목표를 성취하고 만물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현존 속에 서게 되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들을 결정한다.

비록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에 다가감은 너희가 영 진보의 최고 유한 차원들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너희는, 너희 내면의 혼 그리고 너희의 영성화 하는 자아와 아주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버지의 증여 영과 즉각적 교체가 항상-존재하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기쁨을 향유해야만 한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은 타고난 능력들과 지적 자질에 있어서 크게 다를 수 있고, 또는 그들은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문명 예술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보와 문화에 거의 모든 인간적 도움의 부족함에서 오는

1. THE APPROACH TO GOD

5:1.1 (62.3) The inability of the finite creature to approach the infinite Father is inherent, not in the Father's aloofness, but in the finiteness and material limitations of created beings. The magnitude of the spiritual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personality of universe existence and the lower groups of created intelligences is inconceivable. Were it possible for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to be transported instantly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himself, they would not know they were there. They would there be just as oblivious of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s where they now are. There is a long, long road ahead of mortal man before he can consistently and within the realms of possibility ask for safe conduct in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Spiritually, man must be translated many times before he can attain a plane that will yield the spiritual vision which will enable him to see even an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5:1.2 (62.4) Our Father is not in hiding; he is not in arbitrary seclusion. He has mobilized the resources of divine wisdom in a never-ending effort to reveal himself to the children of his universal domains. There is an infinite grandeur and an inexpressible generosity connected with the majesty of his love which causes him to yearn for the association of every created being who can comprehend, love, or approach him; and it is, therefor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you, inseparable from your finite personality and material existence, that determine the time and place and circumstances in which you may achieve the goal of the journey of mortal ascension and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Father at the center of all things.

5:1.3 (63.1) Although the approach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Father must await your attainment of the highest finite levels of spirit progression, you should rejoice in the recognition of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immediate communion with the bestowal spirit of the Father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your inner soul and your spiritualizing self.

5:1.4 (63.2) The mortals of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may differ greatly in innate abilities and intellectual endowment, they may enjoy environments exceptionally favorable to social advancement and moral progress, or they may suffer from the lack of almost every human aid to culture and supposed advancement in the arts of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애에 있어서의 영적 진보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영적 통찰력과 조화우주 의미의 증가하는 차원들은 진화 세계에 있는 다양한 물질 환경들의 그러한 모든 사회-도덕적 차이들과는 매우 독립적으로 달성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그들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는 도덕적 기회들과 자질들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자질은 일정하며 특유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모두 아버지 선물의 동일한 신성한 현존을 누리며, 그들은 모두 신성한 기원을 갖는 내주하는 이 영광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를 추구하는 특권을 똑같이 누리며, 또 한편 그들 모두는 이 신비 감시자들의 일정한 영적 안내를 받아들이기를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전심을 다하여 영적으로 동기를 자질로서 부여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서슴없이 헌신한다면, 그는 내주하는 신성한 조절자에 의해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인 영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는 고결한 의식과, 그리고 더욱 그와 같아지는 진보적 체험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한 숭고한 생존의 확신을 그 개별존재의 체험 안에서 물질적으로 변화하는 일에 실패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살아남는 생각 조절자가 영적으로 내주된다. 만일 그러한 인간 마음이 진지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만일 그러한 인간 혼이 하느님을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신성하게 동기부여를 받은 혼을 파라다이스 입구를 향하여 확실하게 상승하는 일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필사자 박탈이란 부정적 영향도 그리고 어떤 훼방 가능한 적극적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모든 그의 창조체들이 자신과의 개인적 교제 안에서 있기를 원하신다. 그는, 그들의 생존지위와 영적 본성이 그러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그들을 받아들일 장소를 파라다이스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언제까지나 너희 철학에 자리 잡게 하라: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고, 그 길은 열려 있다; 신성한 사랑의 기세들과 신성한 관리-행정의 방법과 그리고 수단들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을 향한 모든 우주의 모든 가치 있는 지능존재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에서 모두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

하느님에게 도달하기까지 광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무한자의 현존과 개인성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상승은 일곱 초우주들의 순환회로의 일부분이며, 너희가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둘레를 돈다 하더라도, 너희는 영으로 그리고 지위 안에서 안쪽을 향해 계속 휘돌아 회전되기를 기대해도 된다. 너희는 구체에서 구체로, 외부 순환회로에서 계속 더 내부 중심 가까이로 전환되고 있음은

civilization; but the possibilities for spiritual progress in the ascension career are equal to all; increasing levels of spiritual insight and cosmic meanings are attained quite independently of all such sociomoral differentials of the diversified material environments on the evolutionary worlds.

5:1.5 (63.3) However Urantia mortals may differ in their intellectual, social, economic, and even moral opportunities and endowments, forget not that their spiritual endowment is uniform and unique. They all enjoy the same divine presence of the gift from the Father, and they are all equally privileged to seek intimate personal communion with this indwelling spirit of divine origin, while they may all equally choose to accept the uniform spiritual leading of these Mystery Monitors.

5:1.6 (63.4) If mortal man is wholeheartedly spiritually motivated, unreservedly consecrated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then, since he is so certainly and so effectively spiritually endowed by the indwelling and divine Adjuster, there cannot fail to materialize in that individual's experience the sublime consciousness of knowing God and the supernal assurance of surviving for the purpose of finding God by the progressive experie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like him.

5:1.7 (63.5) Man is spiritually indwelt by a surviving Thought Adjuster. If such a human mind is sincerely and spiritually motivated, if such a human soul desires to know God and become like him, honestly wants to do the Father's will, there exists no negative influence of mortal deprivation nor positive power of possible interference which can prevent such a divinely motivated soul from securely ascending to the portals of Paradise.

5:1.8 (63.6) The Father desires all his creatures to be in personal communion with him. He has on Paradise a place to receive all those whose survival status and spiritual nature make possible such attainment. Therefore settle in your philosophy now and forever: To each of you and to all of us, God is approachable, the Father is attainable, the way is open; the forces of divine love and the ways and means of divine administration are all interlocked in an effort to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every worthy intelligence of every universe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5:1.9 (63.7) The fact that vast time is involved in the attainment of God makes the presence and personality of the Infinite none the less real. Your ascension is a part of the circui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ough you swing around it countless times, you may expect, in spirit and in status, to be ever swinging inward. You can depend upon being translated from sphere to sphere, from the outer circuits ever nearer the inner center, and some day, doubt not, you shall

믿어도 좋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가 신성한 중앙 현존 안에 서게 될 것을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를 보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실제적인 그리고 글자 그대로의 영적 차원의 달성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영적 차원들은 신비 감시자가 내주하였던, 그리고 나중에 그 생각 조절자와 영원히 결합한 어떤 존재든지 달성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적 은둔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그의 창조체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적 결정들의 안개 속으로 스스로 멀리 숨어왔으며, 그들 자신의 비뚤어진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마음들과 비(非)영적 본성의 자아-주장에 빠짐으로써,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아들의 영의 교제로부터 스스로를 한동안 분리해온 것이다.

필사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의 힘이 남아 있는 한, 신성한 뜻을 반복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의 최종 파멸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힘을 잃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자기 자녀들의 필요와 청원에 대하여 아버지의 가슴은 결코 닫힘이 없다. 그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그를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하는 욕망을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잃을 때는, 아버지의 이끄는 힘에 대하여 그의 자손이 그들 가슴을 언제까지나 닫을 때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조절자 융합이 그러한 상승자가 아버지의 뜻을 살기로 최종적이고도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하였음을 우주에 선언할 때 확인된다.

위대하신 하느님은 필사 사람과 직접적 접촉을 만들며 그리고 그의 안에 살고 거주하도록 그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자아의 일부분을 내어주신다. 하느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모험 여행에 오르셨다. 만일 너희가 너희 안의 그리고 너희 둘레의 영적 기세들의 안내를 따른다면, 너희는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그의 창조체들의 우주 목표로서, 사랑 넘치는 하느님에 의해 수립된 그 높은 운명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수 없다.

제 2 장. 하느님의 현존

무한자의 물리적 현존은 물질 우주의 실체이다. 신(神)의 마음 현존은 개별 지적 체험의 깊이 에 의해 그리고 진화적 개인성차원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신성의 영적 현존은 우주에서 차별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점수성에서의 영적 수용능력 의해 그리고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창조체 의지의 헌납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하느님은 그의 영-탄생 아들들 각자 안에 살아 계신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느님의 현존, “아버지의 오른 손”에 항상 들어갈 수 있으며, 그의 창조체 개인성들 모두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

stand in the divine and central presence and see him, figuratively speaking, face to face. It is a question of the attainment of actual and literal spiritual levels; and these spiritual levels are attainable by any being who has been indwelt by a Mystery Monitor, and who has subsequently eternally fused with that Thought Adjuster.

5:1.10 (64.1) The Father is not in spiritual hiding, but so many of his creatures have hidden themselves away in the mists of their own willful decisions and for the time being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communion of his spirit and the spirit of his Son by the choosing of their own perverse ways and by the indulgence of the self-assertiveness of their intolerant minds and unspiritual natures.

5:1.11 (64.2) Mortal man may draw near God and may repeatedly forsake the divine will so long as the power of choice remains. Man's final doom is not sealed until he has lost the power to choose the Father's will. There is never a closure of the Father's heart to the need and the petition of his children. Only do his offspring close their hearts forever to the Father's drawing power when they finally and forever lose the desire to do his divine will — to know him and to be like him. Likewise is man's eternal destiny assured when Adjuster fusion proclaims to the universe that such an ascender has made the final and irrevocable choice to live the Father's will.

5:1.12 (64.3) The great God makes direct contact with mortal man and gives a part of his infinite and eternal and incomprehensible self to live and dwell within him. God has embarked upon the eternal adventure with man. If you yield to the leadings of the spiritual forces in you and around you, you cannot fail to attain the high destiny established by a loving God as the universe goal of his ascendant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2. THE PRESENCE OF GOD

5:2.1 (64.4)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Infinite is the reality of the material universe. The mind presence of Deity must be determined by the depth of individual intellectual experience and by the evolutionary personality level. The spiritual presence of Divinity must of necessity be differential in the universe. It is determined by the spiritual capacity of receptivity and by the degree of the consecration of the creature's will to the doing of the divine will.

5:2.2 (64.5) God lives in every one of his spirit-born sons. The Paradise Sons always have access to the presence of God,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all of his creature personalities have

어갈 수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되든지 개인성 순환회로에 관한 것이며,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주 아버지가 중앙 거주지 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성스러운 구체들 중 하나처럼, 다른 지정 장소에서, 개인적, 자아-의식적 접촉과 그리고 교제를 필요로 한다.

아무튼, 신성한 현존은 자연의 그 어디서나 또는 심지어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도, 내주하는 신비 감시자,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와 가지는 너희의 시도된 교제에서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발견될 수는 없다. 우주 아버지의 영이 너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살아 있는 데, 하늘 멀리에서 하느님을 꿈꾸는 것은 얼마나 큰 오류인가!

너희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 때문에, 너희가 조절자의 영적 인도와 조화에서 진보할수록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밀접하나 그러나 너희 집대성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지는 않는, 다른 영적 영향들의 현존과 변환 힘을 더욱 충분하게 식별하도록 너희가 소망할 수 있다. 너희가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가깝고도 긴밀한 접촉을 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한 드높여진 체험을 증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조절자와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증거는 전적으로 개별 신자의 삶의 체험 속에서 수확되는 영의 열매들의 종류와 크기에 있다. “그들의 열매로서 너희는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빈약하게 영성화된 필사 사람의 물질적 마음이, 파라다이스 조절자처럼 그렇게 신성한 실존개체들의 영 활동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체험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과 조절자의 공동 창조인 혼이 더욱 더 실존적으로 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신비 감시자들의,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영 인도와 다른 초물질 활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혼 의식에서의 새로운 위상이 또한 진화한다.

조절자 교제의 총체적 체험은 도덕적 지위, 정신적 동기부여 그리고 영적 체험을 포함하는 하나의 어떤 것이다. 그러한 어떤 성취인 자아-실현은 주로, 배타적은 아니더라도, 혼 의식의 영역에 국한되지만, 그러나 그 증거들은 모든 그런 내부-영 접촉자들의 삶 속에서 영 열매들의 현시활동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풍부하게 있다.

access to the “bosom of the Father.” This refers to the personality circuit, whenever, wherever, and however contacted, or otherwise entails personal, self-conscious contact and communion with the Universal Father, whether at the central abode or at some other designated place, as on one of the seven sacred spheres of Paradise.

5.2.3 (64.6) The divine presence cannot, however, be discovered anywhere in nature or even in the lives of God-knowing mortals so fully and so certainly as in your attempted communion with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 What a mistake to dream of God far off in the skies whe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lives within your own mind!

5.2.4 (64.7) It is because of this God fragment that indwells you that you can hope, as you progress in harmonizing with the Adjuster’s spiritual leadings, more fully to discern the presence and transforming power of those other spiritual influences that surround you and impinge upon you but do not function as an integral part of you. The fact that you are not intellectually conscious of close and intimate contact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does not in the least disprove such an exalted experience. The proof of fraternity with the divine Adjuster consists wholly i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fruits of the spirit which are yielded in the lif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5.2.5 (65.1)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eagerly spiritualized, material mind of mortal man to experience marked consciousness of the spirit activities of such divine entities as the Paradise Adjusters. As the soul of joint mind and Adjuster creation becomes increasingly existent, there also evolves a new phase of soul consciousness which is capable of experiencing the presence, and of recognizing the spirit leadings and other supermaterial activities, of the Mystery Monitors.

5.2.6 (65.2) The entire experience of Adjuster communion is one involving moral status, mental motivation, and spiritual experience. The self-realization of such an achievement is mainly, though not exclusively, limited to the realms of soul consciousness, but the proofs are forthcoming and abundant in the manifestation of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lives of all such inner-spirit contactors.

제 3 장. 참된 경배

우주 입장에서 볼 때,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러한 존재들과 맺는 그들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또한 별개의 분리된 세 개인들이다. 개인적인 호소와 친교, 그리고 다른 긴밀한 관계들에 관하여 신격(神格)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최고의 감

3. TRUE WORSHIP

5.3.1 (65.3) Though the Paradise Deities, from the universe standpoint, are as one, in their spiritual relations with such beings as inhabit Urantia they are also three distinct and separate person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odheads in the matter of personal appeals, communion, and other

각에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를 그리고 오직 그 분만을 경배한다. 진실로, 우리는 그의 창조자 아들들 안에서 그가 현시되는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고 찬미를 받는 분은 아버지이다.

모든 종류의 간청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영적 조직의 영역에 속한다. 기도, 모든 정식 교통은, 우주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경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한 지역우주에 관련되는 일들이다; 그것들은 대개 창조자 아들의 관할 영역을 벗어나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경배는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기능에 의해 의심할 여지없이 순환회로에 연결되어 창조자의 개인에게 보내진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절자-내주 창조체들의 그러한 경의(敬意)의 기록은 아버지의 영 현존에 의해 용이해진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입증시키는 굉장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며, 나는 아버지 단편들의 모든 계층이, 그들의 주체들의 진실한 찬미를 우주 아버지의 현존 안에 받아질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절자들은 또한 하느님과 교통하는 전(前)개인적 통로들을 의심할 여지없이 직접 활용하며, 그들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들도 활용할 수 있다.

경배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기도는 자아-또는 창조체-이익 요소를 체현한다; 이것이 경배와 기도의 큰 차이이다. 참된 경배 속에는 자아-요청 또는 개인적 이익의 기타 요소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가 어떠하리라고 이해하는 하느님께 경배할 뿐이다. 경배는 경배자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숭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를 경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개인성을 인식함에 대한 자연적이고도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그리고 그의 사랑할 만한 본성과 찬미할 만한 속성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경배에 참여하게 된다.

자아-이익의 요소가 경배에 끼어드는 순간, 그 순간의 헌신은 경배에서 기도로 전환되고 그리고 더욱 적절하게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자 아들의 개인에게 틀림없이 지도된다. 그러나 실천적인 종교적 체함에 있어서는, 기도가 참된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아버지 하느님에게 드러져서 안 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 일상생활의 실천적 관련사들을 다룰 때, 너희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에 기원을 갖는 영 개인성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 너희는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들과 협동하고 있다. 그런즉 이런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며; 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교제한다; 그리고 너희 세계에서 그리고 너희 우주에 두루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지능존재들과 관련하며, 너희의 땅에서의 체제에 관한 세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우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창조자 또는

intimate relations. In the highest sense, we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and him only. True, we can and do worship the Father as he is manifested in his Creator Sons, but it is the Fa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o is worshiped and adored.

5.3.2 (65.4) Supplications of all kinds belong to the realm of the Eternal Son and the Son's spiritual organization. Prayers, all formal communications, everything except adoration and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are matters that concern a local universe; they do not ordinarily proceed out of the realm of the jurisdiction of a Creator Son. But worship is undoubtedly encircled and dispatched to the person of the Creator by the function of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We further believe that such registry of the homage of an Adjuster-indwelt creature is facilitated by the Father's spirit presence. There exists a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to substantiate such a belief, and I know that all orders of Father fragments are empowered to register the bona fide adoration of their subjects acceptably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Adjusters undoubtedly also utilize direct prepersonal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God, and they are likewise able to utilize the spirit-gravity circuits of the Eternal Son.

5.3.3 (65.5) Worship is for its own sake; prayer embodies a self- or creature-interest element; that is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worship and prayer. There is absolutely no self-request or other element of personal interest in true worship; we simply worship God for what we comprehend him to be. Worship asks nothing and expects nothing for the worshiper. We do not worship the Father because of anything we may derive from such veneration; we render such devotion and engage in such worship as a natural and spontaneous reaction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s matchless personality and because of his lovable nature and adorable attributes.

5.3.4 (65.6) The moment the element of self-interest intrudes upon worship, that instant devotion translates from worship to prayer and more appropriately should be directed to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or the Creator Son. But in practical religious experience there exists no reason why prayer should not be addressed to God the Father as a part of true worship.

5.3.5 (66.1) When you deal with the practical affairs of your daily life, you are in the hands of the spirit personalities having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you are co-operating with the agencies of the Conjoint Actor. And so it is: You worship God; pray to, and commune with, the Son; and work out the details of your earthly sojourn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igences of the Infinite Spirit operating on your world and throughout your universe.

5.3.6 (66.2) The Creator or Sovereign Sons who

주권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두 분의 자리에 있다. 이 우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경배의 찬미를 받아들이고 그들 각자의 창조계에 두루 탄원하는 그들 백성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 지역우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실천적 의도와 목적들에 대해 미가엘 아들이 하느님이시다.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지역우주 개인화구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靈)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행정-관리적 그리고 창조적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이 영역에 속한 자녀들과 개인적 접촉을 유지한다.

진지한 경배는 진화하는 혼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연관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한 방향성구현을 전제로 하여, 인간 개인성의 모든 힘들이 동원됨을 의미한다. 물질적 한계를 갖는 마음은 참된 경배의 실제 의의(意義)를 결코 깊이 의식하게 될 수 없다. 사람의 경배 체험에서의 실체의 실현은 주로 그의 진화하는 불멸 혼의 발달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 자아-의식과는 전적으로 독립하여 일어난다.

경배 체험은 합일을 약속하는 조절자가 인간 혼의—하느님을-찾는 필사자 마음과 하느님을-계시하는 불멸 조절자의 공동 창조—형언할 수 없는 염원들과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갈망들을 신성한 아버지와 교통하려는 숭고한 시도이다. 그러므로 경배는, 그의 영성화하는 자아가 연관된 영의 안내를 따라, 우주 아버지의 신앙 아들로서 하느님과 교통하려는 시도에 물질적 마음이 동의하는 행위이다. 필사자 마음은 경배에 동의하며; 불멸 혼은 경배를 갈망하고 일으키며; 신성한 조절자 현존은 필사자 마음과 진화하는 불멸 혼을 대신하여 그러한 경배를 행위로서 이끈다. 참된 경배는,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가지 조화우주 차원; 지적, 모론시아적, 영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들—마음, 혼 그리고 영의 인식 그리고 개인성 안에서 그들의 통일—에서 실현되는 체험이 된다.

제 4 장. 종교에서의 하느님

진화하는 종교들의 도덕은 하느님 탐구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원동력에 의해 사람들을 앞으로 몰아간다. 계시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을 찾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 그러나 종교는 단순히 “절대적 의존”과 “생존의 보장”이라는 소극적인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 봉사에 근거를 두는 신성 달성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체험이다.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local universes stand in the place of both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of Paradise. These Universe Sons receiv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adoration of worship and give ear to the pleas of their petitioning subjects throughout their respective creations. To the children of a local universe a Michael Son i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God. He is the local universe personific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maintains personal contact with the children of these realms through the Universe Spirits, the administrative and creative associates of the Paradise Creator Sons.

5:3.7 (66.3) Sincere worship connotes the mobilization of all the powers of the human personality under the dominance of the evolving soul and subject to the divine directionization of the associated Thought Adjuster. The mind of material limitations can never become highly conscious of the real significance of true worship. Man's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worship experience is chiefly determined by the developmental status of his evolving immortal soul. The spiritual growth of the soul takes place wholly independently of the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5:3.8 (66.4) The worship experience consists in the sublime attempt of the betrothed Adjuster to communicate to the divine Father the inexpressible longings and the unutterable aspirations of the human soul — the conjoint creation of the God-seeking mortal mind and the God-revealing immortal Adjuster. Worship is, therefore, the act of the material mind's assenting to the attempt of its spiritualizing self,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ociated spirit, to communicate with God as a faith s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mortal mind consents to worship; the immortal soul craves and initiates worship; the divine Adjuster presence conducts such worship in behalf of the mortal mind and the evolving immortal soul. True worship, in the last analysis, becomes an experience realized on four cosmic levels: the intellectual, the morontial, the spiritual, and the personal — the consciousness of mind, soul, and spirit, and their unification in personality.

4. GOD IN RELIGION

5:4.1 (66.5) The morality of the religions of evolution drives men forward in the God quest by the motive power of fear. The religions of revelation *allure* men to seek for a God of love because they crave to become like him. But religion is not merely a passive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and “surety of survival”; it is a living and dynamic experience of divinity attainment predicated on humanity service.

참된 종교의 크고 즉각적인 봉사는 인간 체험 속에서의 영속하는 합일, 영존하는 평화와 깊은 확신의 수립이다.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다신교(多神敎)조차도 신(神)에 대한 진화적 개념의 상대적 통일이다; 다신교는 발달 중인 유일신교이다. 머지않아서, 하느님은 가치들의 실체, 의미들의 본체, 그리고 진리의 생명으로서 이해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하느님은 단지 운명의 결정자일 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목적지이다. 인간의 모든 비종교적 활동들은 우주를 자아의 왜곡된 봉사에 맞추려고 모색한다; 참으로 종교적인 개별존재는 자아를 우주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합일된 이 자아의 행위들을, 인간이든지 초인간이든지, 동료 존재들의 우주 가족에 대한 봉사에 바치려고 모색한다.

철학과 예술의 권역들은 인간 자아의 비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 사이에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하여, 물질적-마음을-가진 사람은 영원한 의미의 영적 실체와 그리고 우주 가치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유인된다.

모든 종교는 신(神)에 대한 경배와 인간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끝남이 없는 평화를 약속한다; 유대교는 어려움들로부터의 구원, 정의(正義)에 근거를 둔 번영을 약속한다; 그리스 종교는 아름다움의 실현으로, 부조화, 추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한다; 그리스도교는 거룩함,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한다; 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혹한 도덕적 기준들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한다. 예수의 종교는 시간 속에서의 그리고 영원 속에서의 창조체 고립안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해방, 자아로부터의 구원이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선(善)에 기초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에 기초하였다; 두 종교가 모두 진리를 추구하였다. 예수는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였고, 사랑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모든 것을-포용하는 것이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도덕의 종교를 가졌으며; 힌두인들은 형이상학의 종교를 가졌으며; 유교도들은 윤리의 종교를 가졌다. 예수는 봉사의 종교를 실천하였다. 이 모든 종교들은 예수의 종교에 접근하기에 유효한 가치를 그 안에 갖고 있다. 종교는 인간 체험 속에서 선행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한 그 모든 것의 영적 통일의 실체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를 가졌으며;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을 알라”는 그들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하는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을 알고, 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였다. 종교의 목적에서 서로 다른 이러한 개념들이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개별존재의 태도

5:4.2 (66.6) The great and immediate service of true religion is the establishment of an enduring unity in human experience, a lasting peace and a profound assurance. With primitive man, even polytheism is a relativ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concept of Deity; polytheism is monotheism in the making. Sooner or later, God is destined to be comprehended as the reality of values, the substance of meanings, and the life of truth.

5:4.3 (67.1) God is not only the determiner of destiny; he is man's eternal destination. All nonreligious human activities seek to bend the universe to the distorting service of self; the truly religious individual seeks to identify the self with the universe and then to dedicate the activities of this unified self to the service of the universe family of fellow beings, human and superhuman.

5:4.4 (67.2) The domains of philosophy and art intervene between the nonreligious and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he human self. Through art and philosophy the material-minded man is inveigled into the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realities and universe values of eternal meanings.

5:4.5 (67.3) All religions teach the worship of Deity and some doctrine of human salvation. The Buddhist religion promises salvation from suffering, unending peace; the Jewish religion promises salvation from difficulties, prosperity predicated on righteousness; the Greek religion promised salvation from disharmony, ugliness, by the realization of beauty; Christianity promises salvation from sin, sanctity; Mohammedanism provides deliverance from the rigorous moral standards of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religion of Jesus is salvation from self, deliverance from the evils of creature isolation in time and in eternity.

5:4.6 (67.4) The Hebrews based their religion on goodness; the Greeks on beauty; both religions sought truth. Jesus revealed a God of love, and love is all-embracing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5:4.7 (67.5) The Zoroastrians had a religion of morals; the Hindus a religion of metaphysics; the Confucianists a religion of ethics. Jesus lived a religion of service. All these religions are of value in that they are valid approaches to the religion of Jesus. Religion is destined to become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unification of all that is good, beautiful, and true in human experience.

5:4.8 (67.6) The Greek religion had a watchword “Know yourself”; the Hebrews centered their teaching on “Know your God”; the Christians preach a gospel aimed at a “knowledge of the Lord Jesus Christ”; Jesus proclaimed the good news of “knowing God, and yourself as a son of God.” These differing concepts of the purpose of religion determine the individual's attitude in various life

를 결정하며 그리고 그의 개인적 기도 습관의 본성과 경배의 깊이를 예시한다. 어떤 종교든지 그 영적 지위는 그 기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半)인간이고 질투하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다신교와 숭고한 유일신교 사이의 필연적 과도기이다. 드높여진 사람모습의-신(神)사상은 순수하게 진화 종교의 최고 달성 차원이다. 그리스도교는 사람모습의-신(神) 개념을, 인간의 관념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개념으로 높여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모습의-신(神)사상이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은 분리된 세 가르침들을 병합하려는 시도이다:

1. 히브리 개념—도덕적 가치의 옹호자로서의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

2. 그리스 개념—통합자로서의 하느님, 지혜의 하느님.

3. 예수의 개념—살아 계시는 친구로서의 하느님, 사랑 넘치는 아버지, 신성한 현존.

그러므로 혼합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어려움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들이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타르수스의 바울; 서로 다른 이 세 사람들 각자의 개인적 종교적 체험에 기초를 두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악화되어있다.

예수의 종교적 삶을 연구할 때,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의 죄 없음 보다는 그의 정의(正義), 그의 사랑스러운 봉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라.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대해 히브리 개념 속에 계시된 수동적 사랑을, 모든 개별존재의, 심지어 그릇된 행동을 범한 자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더 높은 활동적이고 창조체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올려놓았다.

제 5 장. 하느님에 대한 의식(意識)

도덕은 자아-의식의 이성애 그 기원이 있다; 그것은 초(超)동물적이지만 전적으로 진화적이다. 인간 진화는 조절자들을 증여하기까지 그리고 진리의 영이 부어지기까지, 선행되는 모든 자질들을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포용한다. 그러나 도덕 차원의 달성은 사람을 필사 삶에서의 실제 투쟁으로부터 해방하지 않는다. 사람의 물리적 환경은 실존을 위한 싸움을 수반하며; 사회적 상황들은 윤리적 조절을 필요로 하며; 도덕적 상태는 최고의 이성 영역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며; 영적 체험은(하느님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분투하기를 요구한다.

situations and foreshadow the depth of worship and the nature of his personal habits of prayer. The spiritual status of any religion may b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its prayers.

5.4.9 (67.7) The concept of a semihuman and jealous God is an inevitable transition between polytheism and sublime monotheism. An exalted anthropomorphism is the highest attainment level of purely evolutionary religion. Christianity has elevated the concept of anthropomorphism from the ideal of the human to the transcendent and divine concept of the person of the glorified Christ. And this is the highest anthropomorphism that man can ever conceive.

5.4.10 (67.8) The Christian concept of God is an attempt to combine three separate teachings:

5.4.11 (67.9) 1. *The Hebrew concept* — God as a vindicator of moral values, a righteous God.

5.4.12 (67.10) 2. *The Greek concept* — God as a unifier, a God of wisdom.

5.4.13 (68.1) 3. *Jesus' concept* — God as a living friend, a loving Father, the divine presence.

5.4.14 (68.2) It must therefore be evident that composite Christian theology encounters great difficulty in attaining consistency. This difficulty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doctrines of early Christianity were generally based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ree different persons: Philo of Alexandria, Jesus of Nazareth, and Paul of Tarsus.

5.4.15 (68.3) In the study of the religious life of Jesus, view him positively. Think not so much of his sinlessness as of his righteousness, his loving service. Jesus upstepped the passive love disclosed in the Hebrew concept of the heavenly Father to the higher *active* and creature-loving affection of a God who is the Father of every individual, even of the wrongdoer.

5. THE CONSCIOUSNESS OF GOD

5.5.1 (68.4) Morality has its origin in the reason of self-consciousness; it is superanimal but wholly evolutionary. Human evolution embraces in its unfolding all endowments antecedent to the bestowal of the Adjusters and to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But the attainment of levels of morality does not deliver man from the real struggles of mortal living. Man's physical environment entails the battle for existence; the social surroundings necessitate ethical adjustments; the moral situations require the making of choices in the highest realms of reason; the spiritual experience (having realized God) demands that man find him and sincerely strive to be like him.

종교는 과학의 사실, 사회의 책무, 철학의 가정, 또는 도덕의 암시적 의무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한 인간 응답의 독립된 영역이고 그리고 도덕이후 인간 발전의 모든 단계들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들을 실현하고 우주 동료관계를 즐기는 네 차원들; 자아-보존의 물리적 또는 물질적 차원; 동료관계의 사회적 또는 감정적 차원; 이성의 도덕적 또는 의무적 차원; 신성한 경배를 통한 우주 동료관계 의식의 영적 차원, 이 네 가지 모두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다.

사실을-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느님을 첫째 원인, 기세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느님을 아름다움의 이상(理想), 미학(美學)의 하느님으로 이해한다. 추론하는 철학자는 때로 우주적 합일의 하느님으로 가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범신주의적 신(神)으로 가정한다. 신앙을 가진 종교가는 생존을 돌보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다.

도덕적 행위성은 진화종교와 계시종교의 일부분에 항상 선행되지만, 그러나 종교 체험 전체보다는 선행되지 않는다. 사회적 봉사는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생활의 결과이다. 도덕은 생물학적으로 종교적 체험의 상급 영적차원으로 이끌지 않는다. 추상적인 아름다움의 찬미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를 드높여 받드는 것이나 합일을 존경하는 것도 또한 하느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다.

진화적 종교는, 사람을 조절자 증여와 진리의 영의 오심을 포함하여, 계시 종교로 이르는 접수성의 차원까지 높여주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의 모체(母體)이다. 인간 실존에 대한 진화적 풍경은, 매우 다른 종교의 본질특성, 하나는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적이고 주기적인 해도, 종교로 시작하고 종교로 끝난다. 그리하여, 종교는 사람에게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한편, 그것은 또한 선택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면서 종교적일 이유는 없다.

종교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서, 물질적 마음으로는 결코 충만하게 납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학, 종교에서의 심리학의 기능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 실현의 본질적 교리는 유한한 이해에서는 하나의 역설을 창조한다. 인간 논리와 유한한 이성, 내주하는 하느님이며 각 개별존재의 일부분인 신성한 내재의 개념을,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신성한 지배인 하느님의 초월성 관념과 조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신(神)에 대한 본질적 개념은,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초월성 개념이 신앙-과약 안에서,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 단편이 지적 경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개인성 생존의 소망을 실증하려고 내주하며 현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현 안에서, 합일되어야만 한다. 종교에서의 실체들이 지적 이해에서의 필사자 수용능력을 철저히 벗어

5.5.2 (68.5) Religion is not grounded in the facts of science, the obligations of society, the assumptions of philosophy, or the implied duties of morality. Religion is an independent realm of human response to life situations and is unfailingly exhibited at all stages of human development which are postmoral. Religion may permeate all four levels of the realization of values and the enjoyment of universe fellowship: the physical or material level of self-preservation; the social or emotional level of fellowship; the moral or duty level of reason; the spiritual level of the consciousness of universe fellowship through divine worship.

5.5.3 (68.6) The fact-seeking scientist conceives of God as the First Cause, a God of force. The emotional artist sees God as the ideal of beauty, a God of aesthetics. The reasoning philosopher is sometimes inclined to posit a God of universal unity, even a pantheistic Deity. The religionist of faith believes in a God who fosters survival, the Father in heaven, the God of love.

5.5.4 (68.7) Moral conduct is always an antecedent of evolved religion and a part of even revealed religion, but never the whole of religious experience. Social service is the result of moral thinking and religious living. Morality does not biologically lead to the higher spiritual levels of religious experience. The adoration of the abstract beautiful is not the worship of God; neither is exaltation of nature nor the reverence of unity the worship of God.

5.5.5 (68.8) Evolutionary religion is the mother of the science, art, and philosophy which elevated man to the level of receptivity to revealed religion, including the bestowal of Adjusters and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The evolutionary picture of human existence begins and ends with religion, albeit very different qualities of religion, one evolutionary and biological, the other revelational and periodical. And so, while religion is normal and natural to man, it is also optional. Man does not have to be religious against his will.

5.5.6 (69.1) Religious experience, being essentially spiritual, can never be fully understood by the material mind; hence the function of theology,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essential doctrine of the human realization of God creates a paradox in finite comprehension. It is well-nigh impossible for human logic and finite reason to harmonize the concept of divine immanence, God within and a part of every individual, with the idea of God's transcendence, the divine domin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se two essential concepts of Deity must be unified in the faith-grasp of the concept of the transcendence of a personal God and in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presence of a fragment of that God in order to justify intelligent worship and validate the

난다는 사실 속에서, 종교의 난제들과 역설들은 선천적이다.

필사 사람은 그의 땅에서의 일시 머무르는 세월 동안에도, 종교적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감을 획득한다:

1. 지적으로 그는 더욱 합일된 인간 의식의 만족감을 얻는다.

2. 철학적으로 그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상(理想)의 실체화를 즐긴다.

3. 영적으로 그는 참된 경배의 영적 만족 안에서, 신성한 동행자신분에 대한 체험 안에서 자라난다.

하느님-의식은, 그것이 영역의 진화하는 필사자에 의해 체험되듯이, 변화하는 세 요소들, 실체 실현의 서로 다른 세 차원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는 마음 의식—하느님 관념에 대한 이해—이 있다. 다음에는 혼 의식—하느님의 이상(理想)에 대한 실현—이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영 의식—하느님의 영 실체에 대한 실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성한 실현의 이 요소들의 통일에 의하여, 아무리 불완전 하더라도, 필사 개인성은,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실현과 함께 모든 의식 차원들에 항상 널리 퍼진다. 최종의 무리단에 도달한 그 필사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최극위 하느님에 대한 실현으로 이끌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아(亞)절대 초(超)의식의 어떤 위상인 궁극위 하느님 실현으로 결국 생겨날 것이다.

하느님-의식 체험은 대대로 변함없이 같지만, 인간 지식에서 진보하는 각 신(新)시대마다 하느님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定意)는 반드시 변한다. 종교의식인 하느님을-아는 것은 우주적 실체이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실제) 간에, 그것은 지능적 비평과 그리고 합당한 철학적 해석에 기꺼이 자신을 종속화 시켜야한다; 인간 체험의 전체성 속에서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되도록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인성의 영원한 생존은, 그의 결정이 불멸 혼의 생존 잠재를 정하는, 필사자 마음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마음이 하느님을 믿고 혼이 하느님을 알 때, 그리고 돌보는 조절자와 함께 그들 모두가 하느님을 원할 때, 생존이 보증된다. 지능의 한계, 교육의 부족, 문화의 박탈, 사회 지위의 열악,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이 불행하게 부족 됨으로 유래되는 도덕의 인간 기준의 열등함조차도, 그렇게 불행하고 인간으로의 장애가 있어도 믿음을 가진 개별존재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의 현존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 감시자의 내주가 불멸 혼의 성장 그리고

hope of personality survival. The difficulties and paradoxes of religion are inherent in the fact that the realities of religion are utterly beyond the mortal capacity for intellectual comprehension.

5:5.7 (69.2) Mortal man secures three great satisfactions from religious experience, even in the days of his temporal sojourn on earth:

5:5.8 (69.3) 1. *Intellectually* he acquires the satisfactions of a more unified human consciousness.

5:5.9 (69.4) 2. *Philosophically* he enjoys the substantiation of his ideals of moral values.

5:5.10 (69.5) 3. *Spiritually* he thrives in the experience of divine companionship, in the spiritual satisfactions of true worship.

5:5.11 (69.6) God-consciousness, as it is experienced by an evolving mortal of the realms, must consist of three varying factors, three differential levels of reality realization. There is first the mind consciousness — the comprehension of the *idea* of God. Then follows the soul consciousness —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God. Last, dawns the spirit consciousness —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reality* of God. By the unification of these factors of the divine realization, no matter how incomplete, the mortal personality at all times overspreads all conscious levels with a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those mortals who have attained the Corps of the Finality all this will in time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supremacy* of God and may subsequently eventuate in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cy* of God, some phase of the absonite superconsciousness of the Paradise Father.

5:5.12 (69.7) The experience of God-consciousness remains the sa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with each advancing epoch in human knowledge the philosophic concept and the theologic definitions of God *must* change. God-knowingness, religious consciousness, is a universe reality, but no matter how valid (real) religious experience is, it must be willing to subject itself to intelligent criticism and reasonable philosophic interpretation; it must not seek to be a thing apart in the totality of human experience.

5:5.13 (69.8) Eternal survival of personality is wholly dependent on the choosing of the mortal mind, whose decisions determine the survival potential of the immortal soul. When the mind believes God and the soul knows God, and when, with the fostering Adjuster, they all *desire* God, then is survival assured. Limitations of intellect, curtailment of education, deprivation of culture, impoverishment of social status, even inferiority of the human standards of morality resulting from the unfortunate lack of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advantages, cannot invalidate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in such unfortunate and humanly

생존의 잠재의 시초를 이루고, 가능성을 보장한다.

출산에 대한 필사 부모의 능력은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자연적 환경 아래에서 어버이의 요소연합은 자손을 낳기에 매우 충분하다. 인간 마음이 옳고 그릇됨을 식별하고 신성한 조절자와의 연합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는 수용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만일 영(靈)-부여받은 개별존재가 하느님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만일 정직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필사자의 생존하는 본질특성인 불멸 혼의 생산을 시작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제 6 장. 개인성의 하느님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들의 하느님이다. 개인성 지위의 가장 낮은 필사자 그리고 물질적 창조체로부터 창조자 존엄이며 그리고 신성한 지위에 있는 가장 높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우주 개인성의 권역은 그 중심과 테두리를 우주 아버지 안에 둔다. 아버지 하느님은 모든 개인성의 중여자인 동시에 보존자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신성한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선택한 모든 유한 개인성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그 운명이다.

개인성은 우주의 풀리지 않은 신비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개인성의 다양한 계층과 차원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요소들의 적당한 개념들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개인성 자체의 실제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함께 모아져 있을 때, 인간개인성을 위한 매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뚜렷이 감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한(有限) 개인성의 본성과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개인성은 자아-의식인 최소로부터 하느님-의식인 최대에 걸쳐서 마음자질을 소유하는 모든 창조체들 안에서 잠재적이다. 그러나 마음자질 자체만으로는 개인성이 아니며, 또한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개인성은 물질, 마음, 그리고 영의 연관되고 조화-협동된 에너지의 이 살아있는 체계 위에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배타적으로 증여되는, 조화우주 실체에 있는 그 본질특성과 그리고 가치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성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성은 물질적 또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개인성이 있든지 또는 개인성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이다. 개인적-아닌-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활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자의 차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개인성의 증여는 우주 아버지의 배타적기능,

handicapped but believing individuals. The indwelling of the Mystery Monitor constitutes the inception and insures the possibility of the potential of growth and survival of the immortal soul.

5:5.14 (70.1) The ability of mortal parents to procreate is not predicated on their educational, cultural, social, or economic status. The union of the parental factors under natural conditions is quite sufficient to initiate offspring. A human mind discerning right and wrong and possessing the capacity to worship God, in union with a divine Adjuster, is all that is required in that mortal to initiate and foster the production of his immortal soul of survival qualities if such a spirit-endowed individual seeks God and sincerely desires to become like him, honestly elect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6. THE GOD OF PERSONALITY

5:6.1 (70.2) The Universal Father is the God of personalities. The domain of universe personality, from the lowest mortal and material creature of personality status to the highest persons of creator dignity and divine status, has its center and circumference in the Universal Father. God the Father is the bestower and the conservator of every personality. And the Paradise Father is likewise the destiny of all those finite personalities who wholeheartedly choose to do the divine will, those who love God and long to be like him.

5:6.2 (70.3) Personality is one of the unsolved mysteries of the universes. We are able to form adequate concepts of the factors entering into the make-up of various orders and levels of personality,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real nature of the personality itself. We clearly perceive the numerous factors which, when put together, constitute the vehicle for human personality,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such a finite personality.

5:6.3 (70.4) Personality is potential in all creatures who possess a mind endowment ranging from the minimum of self-consciousness to the maximum of God-consciousness. But mind endowment alone is not personality, neither is spirit nor physical energy. Personality is that quality and value in cosmic reality which is exclusively bestowed by God the Father upon these living systems of the associated and co-ordinated energies of matter, mind, and spirit. Neither is personality a progressive achievement. Personality may be material or spiritual, but there either is personality or there is no personality. The other-than-personal never attains the level of the personal except by the direct act of the Paradise Father.

5:6.4 (70.5)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s the

우주 아버지가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대하여 상대적인 창조 의식의 속성과 그리고 그곳에 대한 자유의지 통제를 자질로서 부여하는, 그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개인성구현이다. 아버지 하느님과 분리된 개인성이 없으며, 어떤 개인성도 아버지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 개인성의 중심핵(核), 절대 조절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자아신분의 토대가 되는 속성들은, 우주 아버지, 조화우주 사명활동으로서 그의 배타적 개인적 권역 안에서 활동하는 이의 증여이다.

전(前)개인적 지위의 조절자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수많은 유형들 속에 내주하며, 동일한 이 존재들이, 필사 죽음을 생존시켜, 궁극적 영 달성의 잠재를 가지는 모론시아 창조체로 개인성구현하는 것을 그렇게 보증한다. 이는, 개인성 자질의 그러한 창조체 마음이, 개인성이신 아버지의 전(前)개인적 증여, 영원 하느님의 영 단편으로 내주되면 이, 유한 개인성은, 신성의 그리고 영원의 잠재를 소유하고 그리고 궁극자와 동족(同族)의 운명을 열망하며, 잇달아 절대자의 실현을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신성한 개인성에 관한 수용능력은 전(前)개인적 조절자 안에 선천적으로 있다; 인간 개인성에 관한 수용능력은, 인간 존재의 조화우주-마음 자질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 사람의 체험적 개인성은, 필사 창조체의 물질적 생명 매체가 우주 아버지의 해방시키는 신성의 손길을 받고, 그래서 자아-의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아-결정적이고, 그리고 자아-창조적인 개인성으로 체험의 바다 위에 항해에 나서게 되기까지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실체로서 목격되지 않는다. 물질적 자아는 진정으로 그리고 분별불가하게 개인적이다.

물질적 자아는 개인성과 정체성, 일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전(前)개인적 영 조절자 역시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물질적 개인성과 이, 영 전(前)개인성은, 불멸 혼이라는 생존되는 정체성 실존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창조 속성들을 그렇게 결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불멸 혼의 성장을 위해 준비해 왔고 그리고 선행(先行) 원인성에 절대 의존하는 족쇄로부터 사람의 내부 자아를 해방시켜 왔기에,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 계신다. 사람이,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계해서는, 원인성 응답의 족쇄로부터 그렇게 해방되어 왔고, 그리고 불멸 자아, 혼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되는 이 생존되고 그리고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금할 것인지는, 이제 사람 자신에게 남아 있다. 넓은 우주들의 우주 전체에서 어떤 존재, 기세, 창조자, 혹은 대리자라도, 선택하고 있는 필사자 개인성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선택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작용하는 한, 필사 자유의지의 절대적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영원한 생존과 관계해서는, 하느님은 물질적이고 필사자 의지에 주권이 있음을 선포

exclusive fun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personalization of the living energy systems which he endows with the attributes of relative creative consciousness and the freewill control thereof. There is no personality apart from God the Father, and no personality exists except for God the Father. The fundamental attributes of human selfhood, as well as the absolute Adjuster nucleus of the human personality, are the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acting in his exclusively personal domain of cosmic ministry.

5:6.5 (70.6) The Adjusters of prepersonal status indwell numerous types of mortal creatures, thus insuring that these same beings may survive mortal death to personalize as morontia creatures with the potential of ultimate spirit attainment. For, when such a creature mind of personality endowment is indwelt by a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eternal God, the prepersonal bestowal of the personal Father, then does this finite personality possess the potential of the divine and the eternal and aspire to a destiny akin to the Ultimate, even reaching out for a realization of the Absolute.

5:6.6 (71.1) Capacity for divine personality is inherent in the prepersonal Adjuster; capacity for human personality is potential in the cosmic-mind endowment of the human being. But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mortal man is not observable as an active and functional reality until after the material life vehicle of the mortal creature has been touched by the liberating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being thus launched upon the seas of experience as a self-conscious and a (relatively) self-determinative and self-creative personality. The material self is truly and *unqualifiedly personal*.

5:6.7 (71.2) The material self has personality and identity, temporal identity; the prepersonal spirit Adjuster also has identity, eternal identity. This material personality and this spirit prepersonality are capable of so uniting their creative attributes as to bring into existence the surviving identity of the immortal soul.

5:6.8 (71.3) Having thus provided for the growth of the immortal soul and having liberated man's inner self from the fetters of absolute dependence on antecedent causation, the Father stands aside. Now, man having thus been liberated from the fetters of causation response, at least as pertains to eternal destiny, and provision having been made for the growth of the immortal self, the soul, it remains for man himself to will the creation or to inhibit the creation of this surviving and eternal self which is his for the choosing. No other being, force, creator, or agency in all the wide universe of universes can interfere to any degree with the absolute sovereignty of the mortal free will, as it operates within the realms of choice, regarding the eternal destiny of the personality of the choosing

해 왔으며, 그 선포는 절대적이다.

창조체 개인성의 증여는 선행되는 원인성에 대한 노예적 반응으로부터 상대적 해방을 수여하며, 그러한 모든 도덕적 존재들의 개인성은, 진화적이든지 아니든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속에 집중되어진다. 그들은 광대하고 우주적인 가족 계(界)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의 형제우애의 순환회로를 이루는, 그 존재의 동족관계에 의해 그의 파라다이스 현존을 향하여 계속 끌어 당겨진다. 모든 개인성 속에는 신성한 자발성인 친족관계가 있다.

우주들의 우주의 개인성 순환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자아-의식 실존의 모든 차원의 모든 개인성들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개인성으로 접촉한다. 그리고 전체 창조체의 이 개인성 의식은 생 각 조절자들의 임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중력이 파라다이스 섬 안에서 순환회로화 되어있는 것처럼, 모든 마음은 공동 행위자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있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있는 것처럼, 모든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 안에 순환회로화 되어 있으며, 이 순환회로는 모든 개인성들의 경배를, 기원적이고도 영원한 개인성에게 어김없이 전한다.

조절자가 내주하지 않는 그 개인성들의 경우에는: 선택-해방의 속성이 우주 아버지에 의해 역시 증여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들은 신성한 사랑의 위대한 순환회로,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 마찬가지로 포용되어 있다. 하느님은 모든 참된 개인성들의 주권적 선택을 제공하신다. 어떤 개인성 창조체도 영원한 모험여행 속으로 강요될 수 없다; 영원의 문은 자유의지 하느님의 자유의지 아들의 자유의지 선택에만 응답해서 열린다.

지금까지 나는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관계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고 마치면서, 나는 하느님이 너희의 우주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너희는 모두 그의 행성 자녀들임을 반복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한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 중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mortal. As pertains to eternal survival, God has decreed the sovereignty of the material and mortal will, and that decree is absolute.

5:6.9 (71.4) The bestowal of creature personality confers relative liberation from slavish response to antecedent causation, and the personalities of all such moral beings, evolutionary or otherwise, are centered in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y are ever drawn towards his Paradise presence by that kinship of being which constitutes the vast and universal family circle and fraternal circuit of the eternal God. There is a kinship of divine spontaneity in all personality.

5:6.10 (71.5)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Paradise Father is personally conscious of, and in personal touch with, all personalities of all levels of self-conscious existence. And this personality consciousness of all creation exists independently of the mission of the Thought Adjusters.

5:6.11 (71.6) As all gravity is circuited in the Isle of Paradise, as all mind is circuited in the Conjoint Actor and all spirit in the Eternal Son, so is all personality circuited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circuit unerringly transmits the worship of all personalities to the Original and Eternal Personality.

5:6.12 (71.7) Concerning those personalities who are not Adjuster indwelt: The attribute of choice-liberty is also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and such persons are likewise embraced in the great circuit of divine love,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God provides for the sovereign choice of all true personalities. No personal creature can be coerced into the eternal adventure; the portal of eternity opens only in response to the freewill choice of the freewill sons of the God of free will.

5:6.13 (72.1) And this represents my efforts to present the relation of the living God to the children of time. And when all is said and done, I can do nothing more helpful than to reiterate that God is your universe Father, and that you are all his planetary children.

5:6.14 (72.2) [This is the fifth and last of the series presenting the narrative of the Universal Father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6 편 영원한 아들

⇨ 005

유랜시아 책

007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6 편 영원한 아들

섹션

소개

- 제 1 장.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본성
- 제 3 장. 아버지의 사랑에서의 사명활동
- 제 4 장. 영원한 아들의 속성
- 제 5 장. 영원한 아들의 한계
- 제 6 장. 영 마음
- 제 7 장.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 제 8 장. 영원한 아들의 실현

PAPER 6

THE ETERNAL SON

SECTIONS

Introduction

- 1. Identity of the Eternal Son
- 2. Nature of the Eternal Son
- 3. Ministry of the Father's Love
- 4.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 5. Limitations of the Eternal Son
- 6. The Spirit Mind
- 7.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 8. Realization of the Eternal Son

소개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개인적이자 절대 개념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그리고 방법마다, 그는 언제나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언제나 그러할 살아 계신 이이며 그리고 신성한 말씀인, 그의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아들은, 개인적 현존을 즉각적으로 감싸는,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관계적-연합하면서, 만물의 중심에 거(居)한다.

우리들은 인간지능의 생각 통로로 가는 접근 경로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의 “첫 번째”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불가능한 시간 기원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러한 언어의 왜곡은 시간-매인 필사 창조체들의 마음과 접촉-절충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나타낸다. 순차적 감각에서, 우주 아버지에게 결코 첫 번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아들에게 결코 시작됨이 있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필사자들의 시간-제한된 마음에게 그러한 사고의 상징들로서 영원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순차성의 시간 개념으로 영원의 관계성을 나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INTRODUCTION

6:0.1 (73.1) THE Eternal Son is the perfect and final expression of the “first” personal and absolut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ccordingly, whenever and however the Father personally and absolutely expresses himself, he does so through his Eternal Son, who ever has been, now is, and ever will be, the living and divine Word. And this Eternal Son is residential at the center of all things, in association with, and immediately enshrouding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6:0.2 (73.2) We speak of God's “first” thought and allude to an impossible time origin of the Eternal Son for the purpose of gaining access to the thought channels of the human intellect. Such distortions of language represent our best efforts at contact-compromise with the time-bound minds of mortal creatures. In the sequential sense the Universal Father never could have had a first thought, nor could the Eternal Son ever have had a beginning. But I was instructed to portray the realities of eternity to the time-limited minds of mortals by such symbols of thought and to designate the relationships of eternity by such time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실체, 분별불가한 영, 그리고 절대 개인성에 대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우주적이고 무한한 개념의 영적(靈的) 개인성구현이다. 그리고 이로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창조자 정체성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조성한다. 아들의 완전 개인성은, 아버지가 실제로 영적이고, 의지적이며,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근원임을 드러낸다.

시간의 유한한 마음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 순차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첫째 개인적, 우주적, 그리고 무한한 개념”으로 참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락된 개념을 사용한다. 신(神)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념도 인간 마음에게 전달하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용어들을 씌우로서 그렇게 뒤이어 오는 시대에서 이러한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어느 관념의 얼마만큼을 유한 마음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솟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두 분 모두 분별불가적으로 영원하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 창조체도, 아버지로부터 유래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버지 자신과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한, 한 아들의 이 신비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제 1 장.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영원한 아들은 하느님의 기원적이고도 오직 하나 낳은 아들이다. 그는 아들 하느님이시고, 신(神)의 둘째 개인이시며, 만물의 연관 창조자이다. 아버지가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인 것처럼, 영원한 아들은 둘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다.

영원한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정부의 신성한 관리행정자이며 영적 중심이다. 우주 아버지는 첫째로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자이시다; 영원한 아들은 첫째로 공동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 관리행정자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아들은 영의 개인적 계시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의지적 절대자이다; 둘째근원이며 중심은 개인성 절대자이다.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또는 아들의 조화-협동 활동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창조자로서 몸소 기능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이 영원한 아들에 관하여 참조했었던 것이라면, 그는 진리를 말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concepts of sequentiality.

6:0.3 (73.3) The Eternal Son is the spiritual personalization of the Paradise Father's universal and infinite concept of divine reality, unqualified spirit, and absolute personality. And thereby does the Son constitute the divine revelation of the creator ident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 perfect personality of the Son discloses that the Father is actually the eternal and universal source of all the meanings and values of the spiritual, the volitional, the purposeful, and the personal.

6:0.4 (73.4) In an effort to enable the finite mind of time to form some sequential concept of the relationships of the eternal and infinite beings of the Paradise Trinity, we utilize such license of conception as to refer to the “Father's first personal, universal, and infinite concept.” It is impossible for me to convey to the human mind any adequate idea of the eternal relations of the Deities; therefore do I employ such terms as will afford the finite mind something of an idea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eternal beings in the subsequent eras of time. We believe the Son sprang from the Father; we are taught that both are unqualifiedly eternal. It is apparent, therefore, that no time creature can ever fully comprehend this mystery of a Son who is derived from the Father, and yet who is co-ordinately eternal with the Father himself.

1. IDENTITY OF THE ETERNAL SON

6:1.1 (73.5) The Eternal Son is the original and only-begotten Son of God. He is God the Son, the Second Person of Deity and the associate creator of all things. As the Father is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so the Eternal Son is the Second Great Source and Center.

6:1.2 (74.1) The Eternal Son is the spiritual center and the divine administrator of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al Father is first a creator and then a controller; the Eternal Son is first a cocreator and then a *spiritual administrator*. “God is spirit,” and the Son is a personal revelation of that spiri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Volitional Absolute;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is the Personality Absolute.

6:1.3 (74.2) The Universal Father never personally functions as a creator except in conjunction with the Son or with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Son. Had the New Testament writer referred to the Eternal Son, he would have uttered the truth when he wrot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인간 형태로 있는 이 신성한 존재와 형제우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바 있고, 우리들의 눈으로 본바 있으며, 우리들이 바라본바 있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말씀까지도 우리의 손으로 만져 본바 있던, 처음부터 계신 그 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원아들이 진실로 그러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 증여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그의 땅에서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내 비추어졌다: “그리고 이제, 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했던 영광과, 당신의 자신으로 저를 영광되게 하소서.”

영원한 아들은 여러 다른 우주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우주에서는 조화-협동 근원, 공동 창조자, 그리고 연관-동료 절대자로 알려져 있다. 초우주 본부인 유버사에서 우리는 아들을 조화-협동 영 중심 그리고 영원한 영 관리행정자라고 나타낸다.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에서는 이, 아들이 둘째 영원근원이며 중심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의 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창조체가 거주하는 구체들로 이루어진 너희 체계에서는 아니지만, 너희 세계에서는 이 기원 아들이,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에게 스스로를 증여한 네바돈의 미가엘,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과 혼동되어 왔다.

파라다이스 아들 중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적절하게 불릴 수 있겠지만, 둘째근원이며 중심이고, 우주 아버지와 함께 완전성과 힘의 중앙우주의 공동 창조자이면서 그리고 무한신(神)들로부터 솟아난 모든 다른 신성한 아들의 공동 창조자인, 이 기원 아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영원한 아들”라는 명칭을 항상 예비해 두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본성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히 믿을 수 있다. 그는 바로 아버지와 똑 같이 영적이며, 정말로 똑 같이 무제한적 영이다. 낮은 기원인 너희에게는, 그가 우주 아버지보다 한발자국 더 너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느님 말씀이시다. 그는 온통 하느님과 같으시며; 사실, 영원한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에 개인적으로 현시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들과 그리고 모든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에 대한 이 말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본성에 있어서 아들은 온통 영 아버지와 같다. 우리가 우주 아버지를 경배할 때, 실제로 우리는 아들 하느님과 영 하느님을 동시에 경배한

6:1.4 (74.3) When a Son of the Eternal Son appeared on Urantia, those who fraternized with this divine being in human form alluded to him as “He who was from the beginning, whom we have heard, whom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om we have looked upon, and our hands have handled, even the Word of life.” And this bestowal Son came forth from the Father just as truly as did the Original Son, as is suggested in one of his earthly prayers: “And now, O my Father, glorify me with your own 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is world was.”

6:1.5 (74.4) The Eternal Son is known by different names in various universes. In the central universe he is known as the Co-ordinate Source, the Cocreator, and the Associate Absolute.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we designate the Son as the Co-ordinate Spirit Center and as the Eternal Spirit Administrator.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this Son is of record as the Second Eternal Source and Center. The Melchizedeks speak of him as the Son of Sons. On your world, but not in your system of inhabited spheres, this Original Son has been confused with a co-ordinate Creator Son, Michael of Nebadon, who bestowed himself upon the mortal races of Urantia.

6:1.6 (74.5) Although any of the Paradise Sons may fittingly be called Sons of God, we are in the habit of reserving the designation “the Eternal Son” for this Original So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cocreator with the Universal Father of the central universe of power and perfection and cocreator of all other divine Sons who spring from the infinite Deities.

2. NATURE OF THE ETERNAL SON

6:2.1 (74.6) The Eternal Son is just as changeless and infinitely dependable as the Universal Father. He is also just as spiritual as the Father, just as truly an unlimited spirit. To you of lowly origin the Son would appear to be more personal since he is one step nearer you in approachability than is the Universal Father.

6:2.2 (74.7) The Eternal Son is the eternal Word of God. He is wholly like the Father; in fact, the Eternal Son is God the Father personally manifest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us it was and is and forever will be true of the Eternal Son and of all the co-ordinate Creator Sons: “He who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6:2.3 (74.8) In nature the Son is wholly like the spirit Father. When we worship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we at the same time worship God the Son

다. 아들 하느님은 아버지 하느님처럼 그렇게 본성에 있어서 신성하게 실제^{real}하며 그리고 영원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무한하고 초월적인 정의(正義)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모든 성격의 성스러움까지도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성을 함께 나누며, 신성한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저들의 영적 노력에 있는 모든 불완전성의 창조체들을 도와주는 책임도 함께 나눈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성격과 영성(靈性)의 속성을 소유한다. 아들은 개인성과 영에서 하느님의 절대성의 충만함이며, 그리고 이 아들은 이러한 본질특성을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정부에 대한 그의 개인적 경영에서 드러낸다.

하느님은, 참으로, 우주적 영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영 본성은 영원한 아들의 신(神) 안에 초점화구현되고 개인성구현되어 있다. 아들 안에서, 모든 영적 특징들이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우주보편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분명하게 크게 증진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영 본성을 아들과 함께 나누듯, 그들은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와 더불어, 신성한 영을 마찬가지로 충분하고 남김없이 함께 나눈다.

아들이 우주적 가치를 가진 전적으로 영적 아름다움(美)의 실현에 자신을 더욱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진리의 사랑에서 그리고 미의 창조에서 동일하다.

신성한 선(善)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며,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체들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형제로서 바라본다.

제 3 장. 아버지의 사랑에서의 사명활동

아들은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나누어 가지지만, 그러나 이들 신성 특색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무한한 개인성구현에 의해 빛이 가려지고 있다; 아들은 우주에게 신성한 사랑을 계시한 것이다. 하느님이 사랑인 것처럼, 아들은 자비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한 가지 추가적 방법으로 창조체들에게 자비를 보여 줄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처럼 시원적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에, 우주 아버지의 다른 모든 아들들의 아들관계 체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체에게 위대한 자비의 사명활동자이다. 자비는 아들의 영 성격의 본질이다. 영원한 아들의 통치는, 그것들이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영 순환회로들을 건너 나아갈 때, 자비의 격조로 맞추어진다.

and God the Spirit. God the Son is just as divinely real and eternal in nature as God the Father.

6.2.4 (75.1) The Son not only possesses all the Father's infinite and transcendent righteousness, but the Son is also reflective of all the Father's holiness of character. The Son shares the Father's perfection and jointly shares the responsibility of aiding all creatures of imperfection in their spiritual efforts to attain divine perfection.

6.2.5 (75.2) The Eternal Son possesses all the Father's character of divinity and attributes of spirituality. The Son is the fullness of God's absoluteness in personality and spirit, and these qualities the Son reveals in his personal management of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6.2.6 (75.3) God is, indeed, a universal spirit; God is spirit; and this spirit nature of the Father is focalized and personalized in the Deity of the Eternal Son. In the Son all spiritual characteristics are apparently greatly enhanced by differentiation from the univers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the Father shares his spirit nature with the Son, so do they together just as fully and unreservedly share the divine spirit with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Spirit.

6.2.7 (75.4) In the love of truth and in the creation of beauty the Father and the Son are equal except that the Son *appears* to devote himself more to the realization of the exclusively spiritual beauty of universal values.

6.2.8 (75.5) In divine goodness I discern no differenc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 Father loves his universe children as a father; the Eternal Son looks upon all creatures both as father and as brother.

3. MINISTRY OF THE FATHER'S LOVE

6.3.1 (75.6) The Son shares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Trinity but overshadows these divinity traits by the infinite personalization of the Father's love and mercy; the Son is the revelation of divine love to the universes. As God is love, so the Son is mercy. The Son cannot love more than the Father, but he can show mercy to creatures in one additional way, for he not only is a primal creator like the Father, but he is also the Eternal Son of that same Father, thereby sharing in the sonship experience of all other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6.3.2 (75.7) The Eternal Son is the great mercy minister to all creation. Mercy is the essence of the Son's spiritual character. The mandates of the Eternal Son, as they go forth over the spirit circuits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re keyed in

영원한 아들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의 신성한 근원, 사랑이신 아버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차려야 하며, 그 다음에는, 무한한 영(靈)과 그리고 그의 거의 한없는 사명활동하는 개인성 무리단의, 멀리-퍼지는 사명활동에서 이 무한한 애정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영원한 아들의 사명활동은 우주들의 우주에게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는 데에 바쳐진다. 이 신성한 아들은 그의 인자한 아버지가 미친한 창조체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시간의 그릇된 행동을 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미친한 과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아버지에게 공간의 물질세계에 있는 그의 낮은 창조체들을 위하여 자비를 보여주시도록 간청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아들을 그려보는 것은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원시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비로운 직무가, 우주의 사랑과 무한한 연민을 가진 아버지의 진심을 직접 계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현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가진 자비의 실제이자 영원한 근원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이시다. 자비는 적용된 사랑, 그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 안에서 행하여지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우주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주적이다. 사랑이 성(性)의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이해되는 경우, 하느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좀 더 견주어 볼 만하고 반면, 영원한 아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애정에 좀 더 비슷하다. 이러한 설명은 정말로 미숙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그것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사이에, 그 신성한 내용이 아닌 본질특성과 표현의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인간 마음에게 전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사용한다.

제 4 장. 영원한 아들의 속성

영원한 아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영 차원 동기가 된다; 아들의 영적 힘은 모든 우주 실재성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그는 영 중력(重力)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파악을 통하여 실재화된 모든 영 실체에 대해 그리고 차별화되지 않은 모든 영 에너지의 상호-연관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행사한다. 순수하고 단편화되지 않은 모든 영과 모든 영적존재와 가치는 시원적 파라다이스 아들의 무한한 끌어내는 힘에 응답을 보인다. 그리고 만일 영원한 미래가 무제한적 우주의 출현을 목격하는 경우, 기원 아들의 영 중력과 영의 힘은, 그러한 한없는 창조에 대한 영적 통제와 효력적인 관리-행정에 온통 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아들은 영적 영역 안에서만 전능(全能)하다. 우주 관리-행정의 영원한 섭리에서, 기능에서의 낭비적이고 필요없는 반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신(神)들은 우주 사명활동에서의 쓸모없는 복

tones of mercy.

6:3.3 (75.8) To comprehend the love of the Eternal Son, you must first perceive its divine source, the Father, who is love, and then behold the unfolding of this infinite affection in the far-flung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and his almost limitless host of ministering personalities.

6:3.4 (75.9) The ministry of the Eternal Son is devoted to the revelation of the God of love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divine Son is not engaged in the ignoble task of trying to persuade his gracious Father to love his lowly creatures and to show mercy to the wrongdoers of time. How wrong to envisage the Eternal Son as appealing to the Universal Father to show mercy to his lowly creatures on the material worlds of space! Such concepts of God are crude and grotesque. Rather should you realize that all the merciful ministrations of the Sons of God are a direct revelation of the Father's heart of universal love and infinite compassion. The Father's love is the real and eternal source of the Son's mercy.

6:3.5 (75.10) God is love, the Son is mercy. Mercy is applied love, the Father's love in action in the person of his Eternal Son. The love of this universal Son is likewise universal. As love is comprehended on a sex planet, the love of God is more comparable to the love of a father, while the love of the Eternal Son is more like the affection of a mother. Crude, indeed, are such illustrations, but I employ them in the hope of conveying to the human mind the thought that there is a difference, not in divine content but in quality and technique of expression, between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love of the Son.

4.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6:4.1 (76.1) The Eternal Son motivates the spirit level of cosmic reality; the spiritual power of the Son is absolute in relation to all universe actualities. He exercises perfect control over the interassociation of all undifferentiated spirit energy and over all actualized spirit reality through his absolute grasp of spirit gravity. All pure unfragmented spirit and all spiritual beings and values are responsive to the infinite drawing power of the primal Son of Paradise. And if the eternal future should witness the appearance of an unlimited universe, the spirit gravity and the spirit power of the Original Son will be found wholly adequate for the spiritual control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such a boundless creation.

6:4.2 (76.2) The Son is omnipotent only in the spiritual realm. In the eternal economy of universe administration, wasteful and needless repetition of function is never encountered; the Deities are not

제에 빠지지 않는다.

기원 아들의 전재(全在)는 우주들의 우주의 영적 합일을 구성한다. 모든 창조의 영적 응집은 도처에 있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영의 활발한 현존에 달려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 그럴 때, 우리의 사고(思考) 속에서 그것을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아버지의 영은 아들의 영 안에 영원히 거(居)한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전재(全在)하는 것이 틀림 없지만, 그러한 전재(全在)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곳에서의 영 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우리는 이원적(二元的)인 영적 본성을 갖는 아버지-아들 현존의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조화-협동한다고 믿는다.

개인성과의 접촉에 있어서, 아버지는 개인성 순환회로 안에서 행하신다. 그의 영적 창조와의 개인적이면서도 탐지 가능한 접촉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신(神)의 전체성의 단편들 속에서 나타나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은 그들이 우주들 안에서 언제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단독의, 독특한, 그리고 배타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도 아들의 영은 우주 아버지의 단편화된 현존의 영적 기능과 조화-협동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으로 전재(全在)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은 가장 분명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둘레에 계시지만, 그러나 신비 감시 자처럼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의 일부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은 인간 마음을 점진적으로 신성한 태도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그리하여 그렇게 상승하는 마음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만능의 영-중력 순환회로의 영적으로 끌어내는 힘에 점점 더 응답하게 된다.

기원 아들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아-의식을 가진다. 지혜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충만하게 동일하시다. 지식의 영역, 전지(全知)함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근원과 둘째 근원을 구별할 수가 없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모든 것을 아신다; 아들은 어떠한 우주 사건에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이해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들과 영성화된 존재들의 숫자와 소재(所在)를 실제로 다 아신다. 아들은 자신의 전재(全在)하는 영으로 만물을 아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공동 행위자와 동등하게, 최극존재의 방대한 반영성 지능을 충만하게 인지하시는데, 그 지능은 일곱 초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아신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이 전지(全知)하신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돌보시는 영적 개인성으로서의 영원한 아들은, 온통 그리고 무한하게

given to useless duplication of universe ministry.

6:4.3 (76.3) The omnipresence of the Original Son constitutes the spiritual unit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piritual cohesion of all creation rests upon the everywhere activ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of the Eternal Son. When we conceive of the Father's spiritual presence, we find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it in our thinking from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 spirit of the Father is eternally resident in the spirit of the Son.

6:4.4 (76.4) The Father must be spiritually omnipresent, but such omnipresence appears to be inseparable from the everywhere spirit activities of the Eternal Son. We do, however, believe that in all situations of Father-Son presence of a dual spiritual nature the spirit of the Son is co-ordinate with the spirit of the Father.

6:4.5 (76.5) In his contact with personality, the Father acts in the personality circuit. In his personal and detectable contact with spiritual creation, he appears in the fragments of the totality of his Deity, and these Father fragments have a solitary, unique, and exclusive function wherever and whenever they appear in the universes. In all such situations the spirit of the Son is co-ordinate with the spiritual function of the fragmented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6:4.6 (76.6) Spiritually the Eternal Son is omnipresent. The spirit of the Eternal Son is most certainly with you and around you, but not within you and a part of you like the Mystery Monitor. The indwelling Father fragment adjusts the human mind to progressively divine attitudes, whereupon such an ascending mind becomes increasingly responsive to the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all-powerful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6:4.7 (76.7) The Original Son is universally and spiritually self-conscious. In wisdom the Son is the full equal of the Father. In the realms of knowledge, omniscience, we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ources; like the Father, the Son knows all; he is never surprised by any universe event; he comprehends the end from the beginning.

6:4.8 (77.1) The Father and the Son really know the number and whereabouts of all the spirits and spiritualized being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Not only does the Son know all things by virtue of his own omnipresent spirit, but the Son, equally with the Father and the Conjoint Actor, is fully cognizant of the vast reflectivity intelligence of the Supreme Being, which intelligence is at all times aware of all things that transpire on all the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re are other ways in which the Paradise Son is omniscient.

6:4.9 (77.2) The Eternal Son, as a loving, merciful, and ministering spiritual personality, is wholly and

우주 아버지와 동일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낮은 영역의 상승하는 존재들과의 그, 모든 자비롭고 애정 어린 개인적 접촉에 있어서, 영원한 아들은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그렇게도 자주 자신들을 수여하는 지역우주들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시고 자상하시며,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을성이 있으시다.

영원한 아들의 속성에 관하여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언급했던 예외들과 함께, 아들 하느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납득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느님의 영적 속성을 연구하는 것만이 오직 필요하다.

제 5 장. 영원한 아들의 한계

영원한 아들은 물리적 권역에서 개인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공동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체에게 마음 사명활동의 차원에서 기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된-자격들은, 영적인 전지, 전재, 그리고 전능이라는 모든 신성한 속성을 충만하게 자유롭게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원한 아들을 달리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원한 아들은 신(神) 절대자의 무한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영 잠재를 개인적으로 널리 펴뜨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 잠재적인 것들이 실재적이 되면서, 그것들은 아들의 영-중력 순환 회로의 만능의 장악 안에 들어온다.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의 배타적 선물이다. 영원한 아들은 개인성이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임을 알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 없이 개인성을 증여하지 않는다. 아들은 광대한 영 무리를 기원시키지만, 그러한 파생체들은 개인성들이 아니다. 아들이 개인성을 창조할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하든지 혹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있는, 공동 창조자와 함께 한다. 그와 같이 영원한 아들은 개인성들의 공동 창조자이지만, 그는 어떤 존재에게도 개인성을 증여하지 않으며,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개인적 존재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이런 제한은, 개인적-아닌-어떤 실체의 일부 또는 모든 유형들을 창조하는 능력을 아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 특권의 전달에서 제한되어 있다. 아버지는, 기원 아들을 영원하게 하면서, 창조하는 속성을 소유하는 추가되는 아들들을 낳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신성한 행위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특권을 그에게 증여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행해 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화-협동 아들들이 생산되고 나면, 창조자관계의 특권은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관계 힘을 오직 최초에게만, 또는 직접적 개인성구현에만 전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자 아들을 개인성구현하려고 연합할 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러나 이렇게 실존으로 출

infinitely equal with the Universal Father, while in all those merciful and affectionate personal contacts with the ascendant beings of the lower realms the Eternal Son is just as kind and considerate, just as patient and long-suffering, as are his Paradise Sons in the local universes who so frequently bestow themselves up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6:4.10 (77.3) It is needless further to expatiate on the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With the exceptions noted, it is only necessary to study the spiritual attributes of God the Father to understand and correctly evaluate the attributes of God the Son.

5. LIMITATIONS OF THE ETERNAL SON

6:5.1 (77.4) The Eternal Son does not personally function in the physical domains, nor does he function, except through the Conjoint Actor, in the levels of mind ministry to creature beings. But these qualifications do not in any manner otherwise limit the Eternal Son in the full and free exercise of all the divine attributes of *spiritual* omniscience, omnipresence, and omnipotence.

6:5.2 (77.5) The Eternal Son does not personally pervade the potentials of spirit inherent in the infinity of the Deity Absolute, but as these potentials become actual, they come within the all-powerful grasp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Son.

6:5.3 (77.6) Personality is the exclusive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derives personality from the Father, but he does not, without the Father, bestow personality. The Son gives origin to a vast spirit host, but such derivations are not personalities. When the Son creates personality, he does so in conjunction with the Father or with the Conjoint Creator, who may act for the Father in such relationships. The Eternal Son is thus a cocreator of personalities, but he bestows personality upon no being and of himself, alone, never creates personal beings. This limitation of action does not, however, deprive the Son of the ability to create any or all types of other-than-personal reality.

6:5.4 (77.7) The Eternal Son is limited in transmittal of creator prerogatives. The Father, in eternalizing the Original Son, bestowed upon him the power and privilege of subsequently joining with the Father in the divine act of producing additional Sons possessing creative attributes, and this they have done and now do. But when these coordinate Sons have been produced, the prerogatives of creatorship are apparently not further transmissible. The Eternal Son transmits creatorship powers only to the first or direct personalization. Therefore, when the Father and the Son unite to personalize a Creator Son, they

현된 창조자 아들은, 비록 가장 높은 지역우주 아들에서,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인 속성의 매우 제한된 반영이 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후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아들에게 창조자관계의 특권을 결코 전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고 배타적으로 개인적인 존재로서, 우주 아버지나 그리고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본성을 단편화시킬 수 없으며, 그의 자아신분의 개별존재화된 부분을 다른 실존체나 개인성에게 분배할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창조체를 적시어 씻기도록, 무제한적 영으로서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모든 영 개인성과 영적 실체를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나.

영원한 아들이 모든 창조체에게 영 아버지의 개인적 묘사임을 늘 기억하라. 아들은 개인적이고 신(神) 감각에서 오직 개인적 일뿐이다; 그러한 신성하고 절대적인 개인성은 집대성이-해체될 수도 없고 단편화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느님과 영 하느님은 참으로 개인적이시지만, 그들은 그러한 신(神) 개인성 존재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이기도 하다.

비록 영원한 아들이 생각 조절자 증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가 생각 조절자 증여를 구체적으로 투사하면서 아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필사 사람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셨을 때, 그 계획을 승인하고 끝없는 협동을 서약하면서, 우주 아버지와 의 협의에 참가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단편이 너희 속에 거(居)하는 것과 같이, 아들의 영 현존이 너희를 감싸며, 동시에 이 둘은 너희의 영적 전진을 위하여 언제까지나 하나로서 일하신다.

제 6 장. 영 마음

영원한 아들은 영이시고 마음을 가졌지만, 필사자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영은 아니다. 필사 사람은 마음을 유한의, 조화우주의, 물질적인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차린다. 또한 사람은 하위-개인적(동물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의 마음 현상도 지켜보지만, 그러나 초물질적 존재와 그리고 배타적 영 개인성의 한 부분으로서 연관될 때, 마음의 본성을 파악하는 일은 그에게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마음은 그것이 실존의 영 차원을 언급할 때와, 그리고 그것이 지능존재의 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될 때는, 다르게 정의(定意)되어야만 한다. 영과 직접적으로 결연을 맺은 그러한 종류의 마음은, 영과 물질을 조화-협동시키는 마음이나 혹은 오직 물질과 결연을 맺은 마음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영은 정체성의 다양한 위상들을 항상 의식하고, 유념하고, 그리고 그에 열중되어 있다. 어떤 위

achieve their purpose; but the Creator Son thus brought into existence is never able to transmit or delegate the prerogatives of creatorship to the various orders of Sons which he may subsequently create, notwithstanding that, in the highest local universe Sons, there does appear a very limited reflection of the creative attributes of a Creator Son.

6:5.5 (78.1) The Eternal Son, as an infinite and exclusively personal being, cannot fragmentize his nature, cannot distribute and bestow individualized portions of his selfhood upon other entities or persons as d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But the Son can and does bestow himself as an unlimited spirit to bathe all creation and unceasingly draw all spirit personalities and spiritual realities to himself.

6:5.6 (78.2) Ever remember,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portrayal of the spirit Father to all creation. The Son is personal and nothing but personal in the Deity sense; such a divine and absolute personality cannot be disintegrated or fragmentized. God the Father and God the Spirit are truly personal, but they are also everything else in addition to being such Deity personalities.

6:5.7 (78.3) Though the Eternal Son can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he did sit in council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the eternal past, approving the plan and pledging endless co-operation, when the Father, in projecting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proposed to the Son, “Let us make mortal man in our own image.” And as the spirit fragment of the Father dwells within you, so does the spirit presence of the Son envelop you, while these two forever work as one for your spiritual advancement.

6. THE SPIRIT MIND

6:6.1 (78.4) The Eternal Son is spirit and has mind, but not a mind or a spirit which mortal mind can comprehend. Mortal man perceives mind on the finite, cosmic, material, and personal levels. Man also observes mind phenomena in living organisms functioning on the subpersonal (animal) level, but it is difficult for him to grasp the nature of mind when associated with supermaterial beings and as a part of exclusive spirit personalities. Mind must, however, be differently defined when it refers to the spirit level of existence, and when it is used to denote spirit functions of intelligence. That kind of mind which is directly allied with spirit is comparable neither to that mind which co-ordinates spirit and matter nor to that mind which is allied only with matter.

6:6.2 (78.5) Spirit is ever conscious, minded, and possessed of varied phases of identity. Without

상에서 마음이 없다면, 영 존재들의 형제우애관계에는 아무런 영적 의식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상당하는 것, 알고 그리고 알려지는 능력은 신(神)에게 토착적인 것이다. 신(神)은 개인적, 전(前)개인적, 초(超)개인적, 또는 미(未)개인적일 수도 있으나, 신(神)에게 결코 마음이 없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하자면, 비슷한 실존개체들, 존재들, 혹은 개인성들과 최소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원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것과 같지만, 그러나 우주에 있는 어느 다른 마음과도 같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그것은 공동 창조자의 다양하고 멀리-퍼지는 마음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적 마음의 원조(元祖)인 지성은, 아마도 생각 조절자의 전(前)마음 속에서 가장 잘 설명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이 단편들이 전적으로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前)마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려진 그대로 알고 있고; 그들은 인간의 사고와 동등한 것을 누린다.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영적(靈的) 이시며; 사람은 거의 온통 물질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의 영 개인성, 파라다이스를 에워 도는 그의 일곱 개의 영적 구체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의 미(未)개인적 창조계 본성에 관한 많은 것들은, 너희가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모론시아 상층을 완성을 마치고 나서 너의 영 지위 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초우주를 지나 하보나에 이르면서, 너희가 “영의 마음”—영적 통찰력—자질로서 부여받음에 따라, 영-숨겨진 비밀들 대부분이 분명해질 것이다.

제 7 장.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를 속박한 바로 그 분별불가 개인성으로부터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에 의해 탈출한, 그 무한한 개인성이며, 그 덕분으로 그는 그 후로 늘 계속 창조자들과 창조체들의 늘-팽창하는 그의 우주 위에 끝없는 풍부함으로 자신을 증여해 왔다. 아들은 절대 개인성이시다; 하느님은 아버지 개인성—개인성의 근원, 개인성의 증여자, 개인성의 원인—이시다. 모든 개인적 존재는, 기원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 그의 개인성을 영원히 얻은 것과 같이, 우주 아버지로부터 개인성을 얻는다.

파라다이스 아들의 개인성은 절대이고, 순수하게 영적이며, 이 절대 개인성은 또한, 우선은, 공동 행위자에 대한 아버지의 개인성 증여의, 다음으로는, 멀리-퍼지는 우주에 두루 그의 수많은 창조체에 대한 개인성 증여의,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들이다.

mind in some phase there would be no spiritual consciousness in the fraternity of spirit beings. The equivalent of mind, the ability to know and be known, is indigenous to Deity. Deity may be personal, prepersonal, superpersonal, or impersonal, but Deity is never mindless, that is, never without the ability at least to communicate with similar entities, beings, or personalities.

6:6.3 (78.6) The mind of the Eternal Son is like that of the Father but unlike any other mind in the universe, and with the mind of the Father it is ancestor to the diverse and far-flung minds of the Conjoint Creator. The mind of the Father and the Son, that intellect which is ancestral to the absolut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perhaps best illustrated in the premind of a Thought Adjuster, for, though these Father fragments are entirely outside of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they have some form of premind; they know as they are known; they enjoy the equivalent of human thinking.

6:6.4 (78.7) The Eternal Son is wholly spiritual; man is very nearly entirely material; therefore much pertaining to the spirit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o his seven spiritual spheres encircling Paradise and to the nature of the impersonal creations of the Paradise Son, will have to await your attainment of spirit status following your completion of the morontia ascension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then, as you pass through the superuniverse and on to Havona, many of these spirit-concealed mysteries will clarify as you begin to be endowed with the “mind of the spirit” — spiritual insight.

7.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6:7.1 (79.1) The Eternal Son is that infinite personality from whose unqualified personality fetters the Universal Father escaped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and by virtue of which he has ever since continued to bestow himself in endless profusion upon his ever-expanding universe of Creators and creatures. The Son is *absolute personality*; God is *father personality* — the source of personality, the bestower of personality, the cause of personality. Every personal being derives personality from the Universal Father just as the Original Son eternally derives his personality from the Paradise Father.

6:7.2 (79.2) The personality of the Paradise Son is absolute and purely spiritual, and this absolute personality is also the divine and eternal pattern, first, of the Father's bestowal of personality upon the Conjoint Actor and, subsequently, of his bestowal of personality upon the myriads of his creatures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영원한 아들은 진실로 자비로운 사명활동자이시고, 신성한 영이시며, 영적 힘이시고, 실제 개인성이시다. 아들은 우주에 현시된 하느님이 만드신 영적이고 개인적인 본성—비(非)개인적이고, 가외(加外)신성이며, 비(非)영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잠재적인 모든 것을 벗겨낸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체이자 본체—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개인성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말로써 인간 마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 아버지를 가려서 희미하게 이끄는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막는다. 너희는 너희의 파라다이스 달성을 기다려야만 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왜 유한한 마음이 납득하도록 이 절대 개인성의 성격을 묘사할 수 없었는지, 납득하게 될 것이다.

제 8 장. 영원한 아들의 실현

개인성의 정체성과 본성 그리고 기타 속성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아들은 충만한 동등이고 완전한 보완이며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짝이시다.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라는 것과 같은 감각에서, 아들은 우주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신분이 높은 낮은 그들의 우주 가족을 이루고 있다.

아들의 성격을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 너희는 아버지의 신성한 성격에 대한 계시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뗄 수 없는 하나 이시다. 신성한 개인성으로서, 그들은 비교적 낮은 계층의 지능존재에게는 실질적으로 분별될 수 없다. 신(神) 자신들의 창조적 활동 안에서 기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따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주적 통제의 한 개인적 합일체일 뿐 아니라 우주 관리-행정의 한정된 권역 안에서 기능하는 두 개의 분리된 개인성임을 식별한다.

개인으로서의 너희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분리된 개별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들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들의 관리-행정에 있어서 그들은 너무도 서로 엮여지고 서로 상호관계이기에, 그들 사이를 식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주의 관련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호-연관 속에서 마주칠 때, 그들의 작용을 격리시키려는 시도는 항상 유익하지 않다; 하느님은 창시(創始)하는 생각이고, 아들은 표현 풍부한 말씀임을 오로지 기억하여라. 각 지역우주에서는, 이 불가분성(不可分性)이, 창조자 아들의 신성 안에서 개인성구현되어있고, 그는 천만 거주세계의 창조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를 상징한다.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을 통하여 그리고 무한한

6:7.3 (79.3) The Eternal Son is truly a merciful minister, a divine spirit, a spiritual power, and a real personality. The Son is the spiritual and personal nature of God made manifest to the universes — the sum and substa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divested of all that which is nonpersonal, extradivine, nonspiritual, and pure potential. But it is impossible to convey to the human mind a word picture of the beauty and grandeur of the supernal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Everything that tends to obscure the Universal Father operates with almost equal influence to prevent the conceptual recognition of the Eternal Son. You must await your attainment of Paradise, and then you will understand why I was unable to portray the character of this absolute personalit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finite mind.

8. REALIZATION OF THE ETERNAL SON

6:8.1 (79.4) Concerning identity, nature, and other attributes of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full equal, the perfect complement, and the eternal counterpart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ame sense that God is the Universal Father, the Son is the Universal Mother. And all of us, high and low, constitute their universal family.

6:8.2 (79.5) To appreciate the character of the Son, you should study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character of the Father; they are forever and inseparably one. As divine personalities they a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by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They are not so difficult of separate recognition by those whose origin is in the creative acts of the Deities themselves. Beings of nativity in the central universe and on Paradise discern the Father and the Son not only as one personal unity of universal control but also as two separate personalities functioning in definite domains of universe administration.

6:8.3 (79.6) As persons you may conceiv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s separate individuals, for they indeed are; bu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s they are so intertwined and interrelated that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m. When, in the affairs of the universes, the Father and the Son are encountered in confusing interassociations, it is not always profitable to attempt to segregate their operations; merely recall that God is the initiating thought and the Son is the expressionful word. In each local universe this inseparability is personalized in the divinity of the Creator Son, who stands for both Father and Son to the creatures of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6:8.4 (80.1) The Eternal Son is infinite, but he is approachable through the persons of his Paradise

영의 참을성 있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에게 다갈 수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베푸는 증여 봉사와 무한한 영의 창조체에 대한 사랑 넘치는 사명활동 없이는, 물질적으로 기원된 존재들이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할 희망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똑같이 참되다: 하느님을-의식하는 필사자는, 이 천상의 대리자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확실하게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장엄한 아들들 중의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서게 될 것이다.

비록 영원한 아들이 필사 개인성이 달성하는 것의 원형틀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아버지와 영의 두 분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의 인간 개인성의 실재 증여자이고, 무한한 영은 너희의 필사자의 마음의 절대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진보의 파라다이스 경로 속에서 너희가 상승함에 따라,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이 너희에게 점점 더 실체적이 될 것이고, 그의 무한하게 영적인 마음의 실체는 점진적으로 영성화 되어가는 너희의 마음에게 더 많이 식별될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은 너희의 물질적 마음 또는 그 이후의 모른시아 마음속에서 결코 완전히 벗날 수는 없다; 너희가 영성화 되고 그리고 너희 영의 상승을 개시하기까지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 이해는, 개인 속에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한때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었고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본인,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된 창조자 아들 개인성에 대한 너희 개념의 생생함과 동일해지기 시작한다.

너희 지역우주에 두루 인간에 의해 그 개인성이 이해될 수 있는 창조자 아들 체험이,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더욱 배타적 영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충만한 의의(意義)를 파악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력을 보상에 주어야만 한다. 너희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통하여 진보할 때, 너희가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에 대한 깊은 기억과 생생한 모습을 뒤로 하고 떠날 때, 떠나가는 이 물질적인 체험과 모른시아 체험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강화되는 이해와 계속-넓어지는 개념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의 실체와 친숙함은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진보함에 따라 더욱 증강될 것이다.

영원한 아들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개인성 이시다. 것처럼 무한한 존재의 개인성의 실재성을 파악하는 것은 비록 필사이면서 그리고 물질적 마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그는 하나의 개인이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거의 셀 수 없이 수많은 시간을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현존 속에 섰었고, 그런 다음 그의 인자하신 권유를 실행하기 위하여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왔다.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설명하는 이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연자에 의하여 쓰여 졌다]

Sons and through the patient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Without the bestowal service of the Paradise Sons and the loving ministry of the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beings of material origin could hardly hope to attain the Eternal Son. And it is equally true: With the help and guidance of these celestial agencies the God-conscious mortal will certainly attain Paradise and sometime stand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is majestic Son of Sons.

6:8.5 (80.2) Even though the Eternal Son is the pattern of mortal personality attainment, you find it easier to grasp the reality of both the Father and the Spirit because the Father is the actual bestower of your human personality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absolute source of your mortal mind. But as you ascend in the Paradise path of spiritual progression,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will become increasingly real to you, and the reality of his infinitely spiritual mind will become more discernible to your progressively spiritualizing mind.

6:8.6 (80.3) Never can the concept of the Eternal Son shine brightly in your material or subsequent morontial mind; not until you spiritize and commence your spirit ascension will the comprehens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begin to equal the vividness of your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the Creator Son of Paradise origin who, in person and as a person, onetime incarnated and lived on Urantia as a man among men.

6:8.7 (80.4) Throughout your local universe experience the Creator Son, whose personality is comprehensible by man, must compensate for your inability to grasp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more exclusively spiritual, but none the less personal, Eternal Son of Paradise. As you progress through Orvonton and Havona, as you leave behind you the vivid picture and deep memories of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the passing of this material and morontia experience will be compensated by ever-enlarging concepts and intensifying comprehension o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whose reality and nearness will ever augment as you progress Paradiseward.

6:8.8 (80.5) The Eternal Son is a grand and glorious personality. Although it is beyond the powers of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to grasp the actuality of the personality of such an infinite being, doubt not, he is a person. I know whereof I speak. Times almost without number I have stood in the divine presence of this Eternal Son and then journeyed forth in the universe to execute his gracious bidding.

6:8.9 (80.6) [Indited by a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formulate this statement depicting the Eternal Son of Paradise.]

제 7 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와의 관계

⇨ 006

유랜시아 책

008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7 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와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영-중력 순환회로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관리-행정

제 3 장. 개별존재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관계

제 4 장. 신성한 완전 계획

제 5 장. 증여의 영

제 6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제 7 장. 아버지의 최극 계시

PAPER 7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pirit-Gravity Circuit

2.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3.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Individual

4. The Divine Perfection Plans

5. The Spirit of Bestowal

6. The Paradise Sons of God

7.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Father

소개

기원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진화하고 있는 우주의 현상들 안에서 그것들에 속한 다양한 집단들의 살아있는 존재들과 함께 진보적으로 펼쳐짐에 따라서, 이 목적의 영적인 측면을 집행하는 데에 항상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파라다이스 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들은 그와 조화-협동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아들들에게 자신의 가능한 모든 것들을 증여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비슷하다. 그리고 아들은 그들의 공동 집행자인 무한한 영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증여하는 아버지의 자아-분배 본성도 또한 공유하고 있다.

영 실체들의 유지자로서의 둘째 근원이며 중심은, 만물을 매우 훌륭하게 유지하는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한 평형추이다. 이외같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중앙 섬의 절묘한 원형틀들의 물질적 아름다움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천상 개인성의 영적 가치 안에서 언제까지나 계시된다.

INTRODUCTION

7:0.1 (81.1) THE Original Son is ever concer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spiritual aspects of the Father's eternal purpose as it progressively unfolds in the phenomena of the evolving universes with their manifold groups of living beings.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is eternal plan, but the Paradise Son undoubtedly does.

7:0.2 (81.2) The Son is like the Father in that he seeks to bestow everything possible of himself upon his co-ordinate Sons and upon their subordinate Sons. And the Son shares the Father's self-distributive nature in the unstinted bestowal of himself upon the Infinite Spirit, their conjoint executive.

7:0.3 (81.3) As the upholder of spirit realities,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is the eternal counterpoise of the Isle of Paradise, which so magnificently upholds all things material. Thus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orever revealed in the material beauty of the exquisite patterns of the central Isle and in the spiritual values of the supernal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영원한 아들은 영 실체들 그리고 영적 존재들의 광대한 창조의 실제적 유지자이다. 영 세계는 아들의 기질, 개인적 행위성이며, 영 본성의 미(未)개인적 실체들은 절대 아들의 완전한 개인성의 뜻과 목적에 항상 응답한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영 개인성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적 창조체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그러한 의지적 존재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유란시아의 자연이 파라다이스와 신(神)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참되게 계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유의지 영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성격을 언제나 참되게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사의 자유의지의 행동을 무엇이 라고 특징짓던지 간에, 모든 영 실체에 대한 아들의 우주적 중력 통제의 영원한 장악은 절대적으로 계속된다.

제 1 장. 영-중력 순환회로

하느님의 내재하심, 그의 전재, 전능, 그리고 전지에 대하여 가르쳐진 모든 것은, 영의 권역에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참이다. 모든 창조의 순수하고 우주적인 영 중력인, 배타적으로 영적인 이 순환회로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에게로 직접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그는 참된 모든 영 가치들에 대한 항상-현존하는 그리고 정확한 그 영적 장악의 통제와 작용을 주재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주권을 행사한다. 그는 글자 그대로 모든 영 실체들과 영성화한 가치들을,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그의 손바닥 안에 담고 있다. 우주의 영 중력에 대한 통제가 우주의 영적 주권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중력 통제는 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영 에너지는 전달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영 중력은 시간 지연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또한 공간의 감축도 겪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 순수한 영 힘의 순환회로들은 물질적 창조의 크기에 의해 지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영 에너지로서의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초월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성 안에 선천적이다; 그것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반(反)중력(重力) 기세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영 실체들은 그들의 질적 가치, 영 본성의 실제적 등급에 따라서 영적 중력의 중심의 당기는 힘에 응답한다. 영 본체(본질특성)는, 물리적 물질(양-量)의 조직된 에너지가 물리적 중력에 응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 중력에 응답한다. 영적 가치들과 영 기체들은 실제적이다. 개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영은 창조의 혼이다; 물질은 그림자와 같

7:0.4 (81.4) The Eternal Son is the actual upholder of the vast creation of spirit realities and spiritual beings. The spirit world is the habit, the personal conduct, of the Son, and the impersonal realities of spirit nature are always responsive to the will and purpose of the perfect personality of the Absolute Son.

7:0.5 (81.5) The Son is not, however,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all spirit personalities. The will of the personal creature is relatively free and hence determines the actions of such volitional beings. Therefore the freewill spirit world is not always truly 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even as nature on Urantia is not truly revelatory of the perfection and immutability of Paradise and Deity. But no matter what may characterize the freewill action of man or angel, the Son's eternal grasp of the universal gravity control of all spirit realities continues as absolute.

1. THE SPIRIT-GRAVITY CIRCUIT

7:1.1 (81.6) Everything taught concerning the immanence of God, his omnipresence, omnipotence, and omniscience, is equally true of the Son in the spiritual domains. The pure and universal spirit gravity of all creation, this exclusively spiritual circuit, leads directly back to the pers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on Paradise. He presides over the control and operation of that ever-present and unerring spiritual grasp of all true spirit values. Thus does the Eternal Son exercise absolute spiritual sovereignty. He literally holds all spirit realities and all spiritualized values, as it were, in the hollow of his hand. The control of universal spiritual gravity is universal spiritual sovereignty.

7:1.2 (82.1) This gravity control of spiritual things operates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therefore is spirit energy undiminished in transmission. Spirit gravity never suffers time delays, nor does it undergo space diminution. It does not decrease in accordance with the square of the distance of its transmission; the circuits of pure spirit power are not retarded by the mass of the material creation. And this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by pure spirit energies is inherent in the absoluteness of the Son; it is not due to the interposition of the antigravity forc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7:1.3 (82.2) Spirit realities respond to the drawing power of the center of spiritual gravity in accordance with their qualitative value, their actual degree of spirit nature. Spirit substance (quality) is just as responsive to spirit gravity as the organized energy of physical matter (quantity) is responsive to physical gravity. Spiritual values and spirit

은 물리적 몸체이다.

영 중력의 반응들과 동요들은 한 개별존재나 혹은 한 세계의 질(質)적 영적 지위, 영적 가치들의 내용과 언제든지 일치한다. 이 당기는 힘은 모든 우주 상황 또는 행성 조건 아래에서의 상호-그리고 내부-영 가치들에 대해 즉시 응답한다. 영적 실체가 우주 안에서 실제화될 때마다, 이러한 변화는 영 중력의 재(再)조절을 즉각 그리고 순간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한 새로운 영은 실제로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필사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것과 똑 같이 그에 따라서, 그는 영 중력의 중심이자 근원인, 영적 아들에 도달할 것이다.

아들의 영적으로 당기는 힘은, 많은 아들관계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에게 점차 적은 규모로서, 선천적이다. 이는 점차로 적은 창조 단위들에서 기능하는 영적 끌어당김의 지역 체계들이 절대 영-중력 순환회로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 중력의 이러한 하위-절대 초점화구현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개인성들의 신성의 일부분이며, 최종 존재의 창발 하는 체계적 전반적-통제와 상관관계되어 있다.

영-중력의 당김과 응답은 우주들에서 전체로서 만이 아니라 개별존재들 그리고 개별존재들의 집단사이에서도 작용한다. 어느 세계, 인종, 국가, 또는 개별존재들의 신앙 집단의 영적인 그리고 영으로 된 개인성들 가운데에는 영적 응집력이 있다. 영적으로 비슷한 기호나 열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영 본성의 직접적인 어떤 끌어당기려는 것이 있다. 유사(類似) 영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중력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도 절대적이다. 죄와 반란이 지역우주 순환회로들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루시퍼의 반란은 거주세계들로 이루어진 너희 체계에 그리고 유란시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은 너희 행성의 영적 격리가 영원한 아들의 전제(全在)하는 영 또는 연관된 영-중력 순환회로의 현존과 기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관찰하지 못한다.

대우주의 영-중력의 모든 반응들은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전제(全在)하는 영의 모든 활동과 반응을 인식하며, 그것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이 유한한 물리적 중력의 작용을 계산해 내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잘-알려진 법칙들에 따라, 우리도 영적 중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영 사물들과 존재들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아들의 영의 변함없는 응답이 있으며, 이 응답은 언제나 그러한 모든 영적 가치들의 실재성의 정도(실체의 질적인 정도)에 따른다.

forces are *real*.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ity, spirit is the soul of creation; matter is the shadowy physical body.

7:1.4 (82:3) The reactions and fluctuations of spirit gravity are ever true to the content of spiritual values, the qualitative spiritual status of an individual or a world. This drawing power is instantly responsive to the inter- and intraspirit values of any universe situation or planetary condition. Every time a spiritual reality actualizes in the universes, this change necessitates the immediate and instantaneous readjustment of spirit gravity. Such a new spirit is actually a part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nd just as certainly as mortal man becomes a spiritized being, he will attain the spiritual Son, the center and source of spirit gravity.

7:1.5 (82:4) The Son's spiritual drawing power is inherent to a lesser degree in many Paradise orders of sonship. For there do exist within the absolute spirit-gravity circuit those local systems of spiritual attraction that function in the lesser units of creation. Such subabsolute focalizations of spirit gravity are a part of the divinity of th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and are correlated with the emerging experiential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7:1.6 (82:5) Spirit-gravity pull and response thereto operate not only on the universe as a whole but also even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There is a spiritual cohesiveness among the spiritual and spiritized personalities of any world, race, nation, or believing group of individuals. There is a direct attractiveness of a spirit nature between spiritually minded persons of like tastes and longings. The term *kindred spirits* is not wholly a figure of speech.

7:1.7 (82:6) Like the material gravity of Paradise,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is absolute. Sin and rebellion may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local universe circuits, but nothing can suspend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Lucifer rebellion produced many changes in your system of inhabited worlds and on Urantia, but we do not observe that the resultant spiritual quarantine of your planet in the least affected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either the omnipresent spirit of the Eternal Son or the associated spirit-gravity circuit.

7:1.8 (82:7) All reactions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grand universe are predictable. We recognize all actions and reactions of the omnipresent spirit of the Eternal Son and find them to be dependable. In accordance with well-known laws, we can and do measure spiritual gravity just as man attempts to compute the workings of finite physical gravity. There is an unvarying response of the Son's spirit to all spirit things, beings, and persons, and this response is alway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actuality (the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의 바로 이러한 신뢰할 만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 이외에, 그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러한 현상들은 아마도 창발하는 영적 잠재 영역에서의 신(神) 절대자의 조화-협동 활동을 나타내는데도 모른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이 장엄하고 무한한 개인성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신(神) 절대자의 행위로 추측되는 것과 연관된 반응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개인성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본다면, 영원한 아들과 신(神) 절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원한 아들이 실질적인 영적 가치들의 권역을 지배하는 반면, 신(神) 절대자는 잠재적 영 가치들의 광대한 권역에 가득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 본성을 가진 모든 실제적 가치는 영원한 아들의 중력 장악 안에 머물지만, 만약 잠재적이면, 겉으로 보기에 신(神) 절대자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영은 신(神) 절대자의 잠재로부터 창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화하는 영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체험적이고 미완성의 장악 속에서 상호관련성을 발견하며; 영은 결국에는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의 절대 장악 속에서 최종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체험적 영의 순환주기로 보이지만, 실존적 영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 속에 선천적이다.

제 2 장. 영원한 아들의 관리-행정

파라다이스에서는 기원 아들의 현존과 그의 개인적 활동이 심오하며, 영적 감각에서 절대이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로부터 하보나를 거쳐 일곱 초우주들 영역 속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점점 덜 감지하게 된다. 하보나-이후 우주들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현존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체험적 실체들에 의해 조건을 갖추고, 또한 신(神) 절대자의 무제한적 영 잠재와 조화-협동을 이루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 안에서 개인성구현된다.

중앙우주에서 기원적 아들의 개인적 활동은 영원한 창조의 절묘한 영적 조화 안에서 식별된다. 하보나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 원형틀 우주의 영적 지위와 에너지 상태는 완전하고 영속적인 균형을 이룬다.

초우주에서는 아들이 직접 계시거나 거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창조계들에서 그는 단지 초(超)개인적 표상(表象)을 지속할 뿐이다. 아들의 이러

qualitative degree of reality) of all such spiritual values.

7:1.9 (83.1) But alongside this very dependable and predictable function of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re are encountered phenomena which are not so predictable in their reactions. Such phenomena probably indicate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Deity Absolute in the realms of emerging spiritual potentials. We know that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is the influence of a majestic and infinite personality, but we hardly regard the reactions associated with the conjectured performances of the Deity Absolute as personal.

7:1.10 (83.2) Viewed from the personality standpoint and by persons, the Eternal Son and the Deity Absolute appear to be related in the following way: The Eternal Son dominates the realm of actual spiritual values, whereas the Deity Absolute seems to pervade the vast domain of potential spirit values. All actual value of spirit nature finds lodgment in the gravity grasp of the Eternal Son but, if potential, then apparently in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7:1.11 (83.3) Spirit seems to emerge from the potentials of the Deity Absolute; evolving spirit finds correlation in the experiential and incomplete grasp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spirit eventually finds final destiny in the absolute grasp of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is appears to be the cycle of experiential spirit, but existential spirit is inherent in the infinity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2.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7:2.1 (83.4) On Paradise the presence and personal activity of the Original Son is profound, absolute in the spiritual sense. As we pass outward from Paradise through Havona and into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e detect less and less of the personal activity of the Eternal Son. In the post-Havona universes the presence of the Eternal Son is personalized in the Paradise Sons, conditioned by the experiential realitie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and co-ordinated with the unlimited spirit potential of the Deity Absolute.

7:2.2 (83.5) In the central universe the personal activity of the Original Son is discernible in the exquisite spiritual harmony of the eternal creation. Havona is so marvelously perfect that the spiritual status and the energy states of this pattern universe are in perfect and perpetual balance.

7:2.3 (83.6) In the superuniverses the Son is not personally present or resident; in these creations he maintains only a superpersonal representation.

한 영 현시활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규정하는데 초(超)개인성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용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들이다; 아(亞)절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초우주들 안에서의 영원한 아들의 관리-행정은, 배타적으로 영적이고 초(超)개인적인데, 창조체 개인성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개인적 영향력의 전체에-스며드는 영적 충동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의 권역에 속하는 모든 구역들의 모든 활동 위상 속에서 접하게 된다. 한편, 지역우주에는 영원한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개인 속에서 직접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여기에서 그 무한 아들은 조화-협동하는 창조자 아들들의 장엄한 무리단의 개인들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기능한다.

These spirit manifestations of the Son are not personal; they are not in the personality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We know of no better term to use than to designate them *superpersonalities*; and they are finite beings; they are neither absonite nor absolute.

7:24 (83.7) The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in the superuniverses, being exclusively spiritual and superpersonal, is not discernible by creature personalities. Nonetheless, the all-pervading spiritual urge of the Son's personal influence is encountered in every phase of the activities of all sectors of the domain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local universes, however, we observe the Eternal Son personally present in the persons of the Paradise Sons. Here the infinite Son spiritually and creatively functions in the persons of the majestic corps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제 3 장. 개별존재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관계

3. RELATION OF THE ETERNAL SON TO THE INDIVIDUAL

지역우주 상승에 있어서 시간의 필사자들은 창조자 아들을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대표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이 초우주 훈련 체제의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의 순례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감을 주는 영의 숭고한 현존을 점점 더 감지하게 되며, 그들은 이러한 영적 격려의 사명활동을 받아들이므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보나에서 그 상승자들은 전체에-스며드는 기원 아들의 영의 사랑으로 감싼 품을 더욱 많이 의식하게 된다. 전체 필사자 상승의 어떤 단계에서도 영원한 아들의 영은 시간 순례자의 마음이나 혼 안에 거주하지 않으나, 그의 자비는 진보하는 시간자들의 복지와 영적 보호와 항상 관계하고 늘 그 곁에 있다.

7:31 (84.1) In the local universe ascent the mortals of time look to the Creator Son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Eternal Son. But when they begin the ascent of the superuniverse training regime, the pilgrims of time increasingly detect the supernal presence of the inspiring spirit of the Eternal Son, and they are able to profit by the intake of this ministry of spiritual energization. In Havona the ascenders become still more conscious of the loving embrace of the all-pervading spirit of the Original Son. At no stage of the entire mortal ascension does the spirit of the Eternal Son indwell the mind or soul of the pilgrim of time, but his beneficence is ever near and always concerned with the welfare and spiritual security of the advancing children of time.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끌어당김은 생존되는 인간 혼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의 선천적 비밀로 되어 있다. 모든 진정한 영 가치들 그리고 진실한 영 성화된 개별존재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의 확실한 장악 안에 붙들려 있다. 예를 들면, 필사자 마음은 물질적 기능구조로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거의 완전한 영 존재로서 최종의 무리단에 편입되는데, 이 전체 체험 동안 점차적으로 물질중력에 덜 지배되고 이에 대응하여 영 중력의 안쪽으로 당기는 충동에 더욱 응답한다. 영-중력 순환회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혼을 파라다이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7:32 (84.2) The spiritual-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constitutes the inherent secret of the Paradise ascension of surviving human souls. All genuine spirit values and all bona fide spiritualized individuals are held within the unfailing grasp of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mortal mind, for example, initiates its career as a material mechanism and is eventually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as a well-nigh perfected spirit existence, becoming progressively less subject to material gravity and correspondingly more responsive to the inward pulling urge of spirit gravity during this entire experience. The spirit-gravity circuit literally pulls the soul of man Paradiseward.

영-중력 순환회로는 믿음이 있는 인간 가슴의 진정한 기도를 인간 의식의 차원에서 신(神)의 실재적 의식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통로이다. 너희의 청원들 속에 있는 잠든 영적 가치를 나타내는 그것은, 영 중력의 우주적 순환회로에 의해 점유

7:33 (84.3) The spirit-gravity circuit is the basic channel for transmitting the genuine prayers of the believing human heart from the level of human consciousness to the actual consciousness of Deity. That which represents true spiritual value in

될 것이고, 관계된 모든 신성한 개인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전달될 것이다. 각자는 그의 개인적 구역에 속한 것을 맡아 스스로 몰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실천적인 종교 체험에 있어서, 너희가 탄원할 때,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을 떠 올리든지 아니면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영원한 아들을 떠 올리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중력 순환회로의 분간하는 기능은 물질적 인간 몸속에 있는 신경 순환회로들의 기능과 아마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작용들은 신경 경로들을 통해 안쪽으로 이동한다; 어떤 것들은 하부의 자율적 척추 중심에 의해 억류되다가 그리고는 그에 응답된다; 다른 것들은 자율적에서 탈하지만 그러나 습관에-훈련되어진, 하부의 뇌 중심으로 가며, 한편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유입 메시지들은 이들 중속적인 중심들을 섭광처럼 지나, 즉각적으로 인간 의식의 최고 차원들 안에 등록된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뛰어난 기법은 얼마나 더 완전한지 모른다! 최극의 영적 가치를 담은 어떤 것이든지 너희의 의식 속에 생기면, 그리고 일단 네가 그것을 표현하면, 모든 창조의 절대 영(靈) 개인성에게 그것이 직접 번개처럼 전해지는 것을 막을 힘이 우주 안에는 전혀 없다.

반대로, 만일 너희가 간청한 것들이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자아-중심적이라면, 그러한 무가치한 기도들이 영원한 아들의 영 순환회로 안에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으로 쓴” 것이 아닌 어떤 청원의 내용이든지 우주적인 영적 순환회로 안에서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순수하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요청들은 죽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은 참된 영 가치들의 순환회로들 속에서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한 말들은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쟁과리”와 같다.

필사자의 탄원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동기가 되는 생각, 영적 내용물이다.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제 4 장. 신성한 완전 계획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진보계획: 의지 창조체의 창조, 진화, 상승 그리고 완전을 위한 우주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서, 아버지와 영속하는 연락을 이룬다. 그리고 신성한 신실함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하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영원함의 완전을 향하여, 시간의 물질적 존재들을 전진하게 하는 이 거대한 달성 계획의 구성과 실행에서 하나가 되신다. 공간의 상승하는 혼들의 영적 높임을 위한 이 구체적인 투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합해진 창조며,

your petitions will be seized by the universal circuit of spirit gravity and will pass immediately and simultaneously to all divine personalities concerned. Each will occupy himself with that which belongs to his personal province. Therefore, in your practical religious experience, it is immaterial whether, in addressing your supplications, you visualize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or the Eternal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7.3.4 (84.4) The discriminative operation of the spirit-gravity circuit might possibly be compared to the functions of the neural circuits in the material human body: Sensations travel inward over the neural paths; some are detained and responded to by the lower automatic spinal centers; others pass on to the less automatic but habit-trained centers of the lower brain, while the most important and vital incoming messages flash by these subordinate centers and are immediately registered in the highest levels of human consciousness.

7.3.5 (84.5) But how much more perfect is the superb technique of the spiritual world! If anything originates in your consciousness that is fraught with supreme spiritual value, when once you give it expression, no power in the universe can prevent its flashing directly to the Absolute Spirit Personality of all creation.

7.3.6 (84.6) Conversely, if your supplications are purely material and wholly self-centered, there exists no plan whereby such unworthy prayers can find lodgment in the spirit circuit of the Eternal Son. The content of any petition which is not “spirit indited” can find no place in the universal spiritual circuit; such purely selfish and material requests fall dead; they do not ascend in the circuits of true spirit values. Such words are as “sounding brass and a tinkling cymbal.”

7.3.7 (85.1) It is the motivating thought, the spiritual content, that validates the mortal supplication. Words are valueless.

4. THE DIVINE PERFECTION PLANS

7.4.1 (85.2) The Eternal Son is in everlasting liaison with the Father in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the *divine plan of progress*: the universal plan for the creation, evolution, ascension, and perfection of will creatures. And, in divine faithfulness, the Son is the eternal equal of the Father.

7.4.2 (85.3) The Father and his Son are as one in the formulation and prosecution of this gigantic attainment plan for advancing the material beings of time to the perfection of eternity. This project for the spiritual elevation of the ascendant souls of

그들은 무한한 영의 협동을 받아 그들의 신성한 목적의 연관적 집행에 몰두해 있다.

완전성 달성의 이 신성한 계획은, 놀라운 정도로 상관관계되어 있지만, 독특한 우주 모험의 세 가지 사업들을 포용 한다:

1. 진보적 달성 계획. 이것은 진화적 상승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계획인데,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창조체들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영원한 아들이 찬성하였을 때 그에 의해 기탄 없이 받아들여진 계획이다. 시간의 창조체들을 올라가도록 하려는 이러한 준비 속에는 생각 조절자들을 아버지가 증여하는 것 그리고 개인성이라는 특권을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 증여 계획. 그 다음의 우주적 계획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 아들들의 위대한 아버지-계시 사업이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이 제안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느님의 아들들을 진화 창조계에 증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개인성 구현하고 사실화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모든 우주들의 창조체들에게 육신화하고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증여 계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그리고 사랑의 이 봉사사명의 일시적 모습으로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창조체 의지가 영적 위험 속에 자리해 온 그러한 것의 복구자로서 활동한다. 달성 계획의 기능 속에 지연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만일 반역이 이 사업을 우연히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의 긴급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영역 속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구체들의 영적 지위를 복구하는 구출자로 활약할 것을 서약하며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주권을 얻은 체험적 증여 생애와 관련하여, 한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영웅적 봉사를 수행했다.

3. 자비 사명활동의 계획. 달성계획과 증여계획이 작성되고 선포된 후에, 무한한 영은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자비 사명활동의 거대하고도 우주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투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것은 달성사업과 증여사업 둘 모두에 대한 실천적이고 효력적인 작용에 매우 본질적인 봉사이며,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영적 개인성들 모두는, 그렇게 신(神)의 셋째 개인 본성의 일부인, 자비 사명활동의 영을 함께 한다. 창조뿐만 아니라 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집행자로서 진실 되게 그리고 글자 그대로 기능한다.

영원한 아들은 창조체 상승에 대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개인적 수탁자(受託者), 신성한 보호 관리자이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

space is a joint cre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y ar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finite Spirit, engaged in associative execution of their divine purpose.

7:4.3 (85.4) This divine plan of perfection attainment embraces three unique, though marvelously correlated, enterprises of universal adventure:

7:4.4 (85.5) 1. *The Plan of Progressive Attainment.* This is the Universal Father's plan of evolutionary ascension, a program unreservedly accepted by the Eternal Son when he concurred in the Father's proposal, "Let us make mortal creatures in our own image." This provision for upstepping the creatures of time involves the Father's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endowing of material creatures with the prerogatives of personality.

7:4.5 (85.6) 2. *The Bestowal Plan.* The next universal plan is the great Father-revelation enterprise of the Eternal Son and his co-ordinate Sons. This is the proposal of the Eternal Son and consists of his bestowal of the Sons of God upon the evolutionary creations, there to personalize and factualize, to incarnate and make real,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mercy of the Son to the creatures of all universes. Inherent in the bestowal plan, and as a provisional feature of this ministration of love, the Paradise Sons act as rehabilitators of that which misguided creature will has placed in spiritual jeopardy. Whenever and wherever there occurs a delay in the functioning of the attainment plan, if rebellion, perchance, should mar or complicate this enterprise, then do the emergency provisions of the bestowal plan become active forthwith. The Paradise Sons stand pledged and ready to function as retrievers, to go into the very realms of rebellion and there restore the spiritual status of the spheres. And such a heroic service a co-ordinate Creator Son did perform on Urantia in connection with his experiential bestowal career of sovereignty acquirement.

7:4.6 (85.7) 3. *The Plan of Mercy Ministry.* When the attainment plan and the bestowal plan had been formulated and proclaimed, alone and of himself, the Infinite Spirit projected and put in operation the tremendous and universal enterprise of mercy ministry. This is the service so essential to the practical and effective operation of both the attainment and the bestowal undertakings, and the spiritual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ll partake of the spirit of mercy ministry which is so much a part of the nature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Not only in creation but also in administration,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truly and literally as the conjoint executive of the Father and the Son.

7:4.7 (86.1)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trustee, the divine custodian, of the Father's universal plan of creature ascension. Having promulgated the

라.”는 우주적 명령을 공표한 후에,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에게 이 거대한 사업을 맡겼으며;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이 숭고한 사업을 함께 육성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신(神)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그리고 직무에서—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와 재건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조화-협동한다.

제 5 장. 증여의 영

“하보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모든 창조로의 알림에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아무 조건 없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초청-명령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하고 연관하는 아들들의 광대한 가족의 생존에 관한 계획과 증여에 관한 구체적인 투사 모두에 동기를 부여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증여들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모든 진화 창조체들에게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 왔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전(前)개인적 생각 조절자라는 선물을 통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인간 존재들과 접촉을 이룰 수 없지만, 영원한 아들은 그가 인간의 현존 속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자체로서 나타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신성한 아들관계의 일련의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변화에 의해, 창조된 개인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영원한 아들의 순수한 개인적 본성은 단편화될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영향력으로서 또는 어떤 개인으로서 사명활동할 수 있고, 다르게는 결코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조절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감각에서는, 창조체 체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들은 증여의 기법에 의해 이 한계를 보충한다. 단편화된 실존개체들의 체험이 우주 아버지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과 같다.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뜻, 인간 마음속에 거주하는 생각 조절자로서 필사 사람에게 오지 않지만, 영원한 아들은 그의 아들의 신성한 개인성, 네바돈의 미가엘이 나사렛의 예수의 인간적 본성으로 육신화 되었을 때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 사람에게 있었다. 창조된 개인성들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러한 창조체들의 바로 그 본성을 취하고 실재적 창조체 자신들로서 그들의 신성한 개인성들을 육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별의 비밀인 육신화는, 그렇지 않다면 개인성 절대론이라는 만물을-둘러싸는 족쇄가 되는 그것에서 아들이 벗어나는 기법이다.

아주 먼 옛날, 영원한 아들은 상승하는 시간

universal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the Father intrusted the execution of this tremendous undertaking to the Eternal Son; and the Eternal Son shares the fostering of this supernal enterprise with his divine co-ordinate, the Infinite Spirit. Thus do the Deities effectively co-operate in the work of creation, control, evolution, revelation, and ministration — and if required, i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5. THE SPIRIT OF BESTOWAL

7:5.1 (86.2) The Eternal Son without reservation joined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broadcasting that tremendous injunction to all creation: “Be you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avona is perfect.” And ever since, that invitation-command has motivated all the survival plans and the bestowal projects of the Eternal Son and his vast family of co-ordinate and associated Sons. And in these very bestowals the Sons of God have become to all evolutionary creature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7:5.2 (86.3) The Eternal Son cannot contact directly with human beings as does the Father through the gift of the prepersonal Thought Adjusters, but the Eternal Son does draw near to created personalities by a series of downstepping gradations of divine sonship until he is enabled to stand in man's presence and, at times, as man himself.

7:5.3 (86.4) The purely personal nature of the Eternal Son is incapable of fragmentation. The Eternal Son ministers as a spiritual influence or as a person, never otherwise. The Son finds it impossible to become a part of creature experience in the sense that the Father-Adjuster participates therein, but the Eternal Son compensates this limitation by the technique of bestowal. What the experience of fragmented entities means to the Universal Father, the incarnation experiences of the Paradise Sons mean to the Eternal Son.

7:5.4 (86.5) The Eternal Son comes not to mortal man as the divine will, the Thought Adjuster indwelling the human mind, but the Eternal Son did come to mortal man on Urantia when the divine *personality* of his Son, Michael of Nebadon, incarnated in the human nature of Jesus of Nazareth. To share the experience of created personalities, the Paradise Sons of God must assume the very natures of such creatures and incarnate their divine personalities as the actual creatures themselves. Incarnation, the secret of Sonarington, is the technique of the Son's escape from the otherwise all-encompassing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7:5.5 (86.6) Long, long ago the Eternal Son

순례자를 포함하여 하보나의 모든 거주민과 순례자의 깨우침과 전진을 위하여 중앙 창조의 순환회로 각각에 자신을 증여했었다. 일곱 번의 이 증여들 중 어느 경우에도 그는 상승자 또는 하보나 시민으로서 기능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였다. 그의 체험은 독특 했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나 다른 순례자와 함께 또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 초(超)개인적 감각에서 연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와 파라다이스의 해안 사이에 끼어 있는 수면 상태를 지나가지도 않았다. 개인성의 의식이 중지되는 일은 절대 존재인 그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계통의 영적 중력이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증여기간 동안, 영적 광명의 중앙 파라다이스 거점은 빛을 잃지 않았고, 우주 영 중력에 대한 아들의 장악이 줄지 않았다.

하보나에서의 영원한 아들의 증여들은 인간이 상상하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초월적이다. 그가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전체 하보나의 체험에 참가시켰지만, 우리는 그가 그의 실존적 본성의 예상되는 체험적 수용능력에 참가시켰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 신비 속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이 이 증여 임무들에서 무엇을 획득하였는지 우리는 그가 그 후로 영원히 존속시키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신(神)의 둘째 개인의 증여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의 하보나 증여를 이해하는데, 그는 중앙우주의 순환회로들을 확실하게 지나갔고 신(神) 달성을 위한 상승자의 준비가 되는 그 체험들을 실제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분이 최초-탄생 창조자 아들인 기원적 미가엘이었으며, 그는 그랜드판다, 모든 필사자들 중에서 하보나에 처음으로 도달한 자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각 순환계의 단계를 직접 여행하면서, 이 순환회로에서 다음 순환회로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일생 체험을 두루 거쳐 갔다.

이 기원적 미가엘이 다른 무엇을 계시하였던지 간에, 그는 기원적 어머니 아들의 초월 증여가 하보나의 창조체들에게 실제임을 보여 주었다.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은 점진적으로 하보나에 도달하는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시간-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의 힘과 영화로움을 일곱 번이나 버렸으며, 이것을 분명하게 압으로써, 그 증여가 너무나 실제적이라 하보나 순환회로를 순회하는 모험여행에서 수고하는 시간 순례자 각자는 언제까지나 늘 기운을 내고 힘을 얻는다.

영원한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두루, 모든 하느님의 아들에게 그들의 증여 사명활동에서 본보기로서의 영감(靈感)이 된다.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연관-동료 치안법관 아들들은, 계시되지 않은 아들관계의 다른 계층들과 함께, 창조체 삶의 다양한 계층에게 그리고 자신들

bestowed himself upon each of the circuits of the central creation for the enlightenment and advancement of all the inhabitants and pilgrims of Havona, including the ascending pilgrims of time. On none of these seven bestowals did he function as either an ascender or a Havoner. He existed as himself. His experience was unique; it was not *with* or as a human or other pilgrim but in some way associative in the superpersonal sense.

7:5.6 (86.7) Neither did he pass through the rest that intervenes between the inner Havona circuit and the shores of Paradise. It is not possible for him, an absolute being, to suspend consciousness of personality, for in him center all lines of spiritual gravity. And during the times of these bestowals the central Paradise lodgment of spiritual luminosity was undimmed, and the Son's grasp of universal spirit gravity was undiminished.

7:5.7 (87.1) The bestowals of the Eternal Son in Havona are not within the scope of human imagination; they were transcendental. He added to the experience of all Havona then and subsequently, but we do not know whether he added to the supposed experiential capacity of his existential nature. That would fall within the bestowal mystery of the Paradise Sons. We do, however, believe that whatever the Eternal Son acquired on these bestowal missions, he has ever since retained; but we do not know what it is.

7:5.8 (87.2) Whatever our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bestowals of the Second Person of Deity, we do comprehend the Havona bestowal of a Son of the Eternal Son, who literally passed through the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actually shared those experiences which constitute an ascender's preparation for Deity attainment. This was the original Michael, the first-born Creator Son, and he passed through the life experiences of the ascending pilgrims from circuit to circuit, personally journeying a stage of each circle with them in the days of Grandfanda, the first of all mortals to attain Havona.

7:5.9 (87.3) Whatever else this original Michael revealed, he made the transcendent bestowal of the Original Mother Son real to the creatures of Havona. So real, that forevermore each pilgrim of time who labors in the adventure of making the Havona circuits is cheered and strengthened by the certain knowledge that the Eternal Son of God seven times abdicated the power and glory of Paradise to participate in the experiences of the time-space pilgrims on the seven circuits of progressive Havona attainment.

7:5.10 (87.4) The Eternal Son is the exemplary inspiration for all the Sons of God in their ministrations of bestowal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co-ordinate Creator Sons and the associate Magisterial Sons, together with other unrevealed orders of sonship, all partake of

이 창조체가 되어서 자신을 증여하려는 이 경이로 운 자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에서 그리고 기원의 사실들뿐만 아니라 본성에서의 친족관계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각자가 공간의 세계에 펼치는 증여에서, 이들 증여를 통하여 그리고 증여에 의해서 그리고 증여 안에서, 영원한 아들이 우주의 지능적 의지 창조체에게 자신을 증여해 왔다는 것이 참말이 되는 것이다.

모든 속성에 있어서는 아닐지라도, 영과 본성에 있어서, 각 파라다이스 아들은 기원적 아들에 대한 신성하고 완전한 초상화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을 이미 본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옳다.

제 6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하느님의 아들들이 다수(多數) 있다는 지식의 부족함이 유란시아에서의 큰 혼돈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이 신성한 개인성들의 비밀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선포하였고, 모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그대로 있다. 구역 표준시간으로 매 천년마다,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그들의 주기적 비밀회의를 위해 함께 모인다.

영원한 아들은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에게 창조에 두루 그들이 기능하듯이 그토록 풍성하게 특징짓는 자비와 봉사의 찬미할만한 속성들의 개인적 근원이다. 영원한 아들은, 속성의 무한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모든 신성한 본성을, 그의 신성한 성격을 계시하기 위하여 영원한 섬으로부터 우주들의 우주에게로 내보내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다.

기원이며 영원한 아들은 “최초로” 완벽하고 그리고 무한한 사고를 가진 우주 아버지의 후손-개인이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새롭고, 기원적이고, 동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개인적 사고를 함께 구체적으로 투사할 때마다, 바로 그순간에 이 창조적 개념은 새롭고도 기원적인 창조자 아들의 존재와 개인성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성구현된다. 영 본성과 신성한 지혜 그리고 조화-협동으로 창조하는 힘 안에서, 이 창조자 아들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그리고 아들 하느님과 잠재적으로 동등하다.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의 우주들 속으로 들어가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통제하는 그리고 창조적인 대리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진보적 진화의 지역우주의 조직을 완성한다. 이들 아들들은 물질과 마음과 영에 대한 중앙의 그리고 우주적인 통제에 배속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조화-협동 절대자들의 선재(先在)와 우선권과 시원성에 의해 그들의 창조적 행위들 속에 제한된다. 이 아들들은 그들이 현존시킬 수 있는 것들만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절대적인 관리-행정은

this wonderful willingness to bestow themselves upon the varied orders of creature life and as the creatures themselves. Therefore, in spirit and because of kinship of nature as well as fact of origin, it becomes true that in the bestowal of each Son of God upon the worlds of space, in and through and by these bestowals, the Eternal Son has bestowed himself upon the intelligent will creatures of the universes.

7:5.11 (87.5) In spirit and nature, if not in all attributes, each Paradise Son is a divinely perfect portraiture of the Original Son. It is literally true, whosoever has seen a Paradise Son has seen the Eternal Son of God.

6. THE PARADISE SONS OF GOD

7:6.1 (87.6) The lack of a knowledge of the multiple Sons of God is a source of great confusion on Urantia. And this ignorance persists in the face of such statements as the record of a conclave of these divine personalities: “When the Sons of God proclaimed joy, and all of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Every millennium of sector standard time the various orders of the divine Sons forgather for their periodic conclaves.

7:6.2 (87.7) The Eternal Son is the personal source of the adorable attributes of mercy and service which so abundantly characterize all order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as they function throughout creation. All the divine nature, if not all the infinity of attributes, the Eternal Son unfailingly transmits to the Paradise Sons who go out from the eternal Isle to reveal his divine character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7:6.3 (88.1)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is the offspring-person of the “first” completed and infinit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Every tim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jointly project a new, original, identical, unique, and absolute personal thought, that very instant this creative idea is perfectly and finally personalized in the being and personality of a new and original *Creator Son*. In spirit nature, divine wisdom, and co-ordinate creative power, these Creator Sons are potentially equal with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7:6.4 (88.2) The Creator Sons go out from Paradise into the universes of time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ntrolling and creative agenc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complete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of progressive evolution. These Sons are not attached to, nor are they concerned with, the central and universal controls of matter, mind, and spirit. Hence are they limited in their creative acts by the pre-existence, priority, and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his co-ordinate Absolutes. These

실존(實在)의 우선권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고 현존(顯存)의 영원함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아버지는 우주들 안에서 여전히 시원적으로 남아 계신다.

창조자 아들들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개인 성구현되는 것과 똑같이, 치안법관 아들들은 아들과 영에 의해 개인성구현된다. 이들은 창조체 육신화의 체험 속에서, 시간과 공간 창조계의 생존의 심판관들로서 봉사하는 권한을 얻는 아들들이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다재다능한 삼위 일체 교사 아들들을 개인성구현하기 위하여 연합하는데, 그들은 인간과 그리고 신성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숭고한 선생들로서 대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또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들관계의 수많은 다른 파라다이스 계층들이 있다.

기원적 어머니 아들과 전체 창조 전반에 흩어져 있는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무리들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배타적인 교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절대적인 영적 관계적-연합의 결속 안에 그것들을 연합하는 영적 친족관계의 본질 특성 속에 그 기능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통로이다. 이 아들관계내부의 순환회로는, 둘째 근원이며 중심의 개인 안에 역시 중심을 두는 영 중력의 우주 순환회로와 전혀 다르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들 안에서 기원되는 하느님의 아들들 전체는 영원한 어머니 아들과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통은 순간적이다; 그것은 때로 공간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간과는 독립적이다.

영원한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모든 계층들의 지위와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관하여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함의 시원적 중앙 창조 안에 있는 그리고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의 2차 창조계 안에 있는 모든 창조체들의 가슴속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 모두에 관하여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제 7 장. 아버지의 최극 계시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과 개인성에 대한 완벽하고도 배타적이고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계시이다.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로부터 와야만 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영적 분별된-자격 없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신성한 개인성에 있어서 그들은 조화-협동을 이룬다; 영적 본성에 있어서 그들은 동등하다; 신성에 있어서는 그들이 동일하다.

Sons are able to administer only that which they bring into existence. Absolute administration is inherent in priority of existence and is inseparable from eternity of presence. The Father remains primal in the universes.

7:6.5 (88.3) Much as the Creator Sons are personalized by the Father and the Son, so are the *Magisterial Sons* personalized by the Son and the Spirit. These are the Sons who, in the experiences of creature incarnation, earn the right to serve as the judges of survival in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7:6.6 (88.4) The Father, Son, and Spirit also unite to personalize the versatile *Trinity Teacher Sons*, who range the grand universe as the supernal teachers of all personalities, human and divine. And there are numerous other orders of Paradise sonship that have not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Urantia mortals.

7:6.7 (88.5) Between the Original Mother Son and these hosts of Paradise Sons scattered throughout all creation, there is a direct and exclusive channel of communication, a channel whose function is inherent in the quality of spiritual kinship which unites them in bonds of near-absolute spiritual association. This intership circui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universal circuit of spirit gravity, which also centers in the pers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ll Sons of God who take origin in the persons of the Paradise Deities are in direct and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Eternal Mother Son. And such communication is instantaneous; it is independent of time though sometimes conditioned by space.

7:6.8 (88.6) The Eternal Son not only has at all times perfect knowledge concerning the status, thoughts, and manifold activities of all orders of Paradise sonship, but he also has perfection of knowledge at all times regarding everything of spiritual value which exists in the hearts of all creatures in the primary central creation of eternity and in the secondary time creations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7.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FATHER

7:7.1 (88.7) The Eternal Son is a complete, exclusive, universal, and final revelation of the spirit and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ll knowledge of,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Father must come from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The Eternal Son is from eternity and is wholly and without spiritual qualification one with the Father. In divine personality they are co-ordinate; in spiritual nature they are equal; in divinity they are identical.

하느님의 성격은 아들의 개인 안에서 본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신성한 아버지가 무한하게 완전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성격과 개인성은 피조 존재들의 계시를 위하여 비(非)개인적이고 비(非)영적인 것을 벗어 버림으로서 증폭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개인성을 훨씬 뛰어넘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아버지 개인성의 영 본질특성들 전체는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 개인성 안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기원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모든 창조에게 아버지의 영적 그리고 개인적 본성의 우주적 계시를 이룩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다. 중앙우주, 초우주들, 지역우주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는 파라다이스 아들이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창조체의 큰길을 계시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높은 기원을 갖는 우리들도 영원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 안에서 그의 성격 그리고 개인성에 대한 계시를 공부할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아버지를 납득한다.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만 개인성으로서 너희에게 내려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동일한 살아있는 길에 의해 아버지에게 도달한다; 너희는 신성한 아들들의 이 집단의 안내에 의해 아버지에게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의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다.

영원한 아들의 멀리-퍼지는 영적 관리-행정에 속하는 이 광범한 활동들 전체 속에서, 아버지가 개인이신 것처럼 진실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들이 개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정말로, 한 때 인간 계층이었던 존재들에게는 영원한 아들이 우주 아버지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시간 순례자들이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통해 진보할 때,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를 식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아들에게 도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한 때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너희 지역우주의 드높여진 주권자인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너희 자신의 창조자 아들에 의해 사랑 넘치는 봉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성한 속성들에 대한 계시를 너희가 묵상하면서 너희는 영원한 아들의 성격과 자비로운 본성을 더 많이 이해해야만 한다.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이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씌어졌음]

7:7.2 (89.1) The character of God could not possibly be intrinsically improved upon in the person of the Son, for the divine Father is infinitely perfect, but that character and personality are amplified, by divestment of the nonpersonal and nonspiritual, for revelation to creature being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much more than a personality, but all of the spirit qualities of the father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re spiritually present in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7:7.3 (89.2) The primal Son and his Sons are engaged in making a universal revelation of the spiritual and personal nature of the Father to all creation. In the central universe,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or on the inhabited planets, it is a Paradise Son who reveals the Universal Father to men and angels. The Eternal Son and his Sons reveal the avenue of creatur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even we of high origin understand the Father much more fully as we study the revelation of his character and personality in the Eternal Son and in the Sons of the Eternal Son.

7:7.4 (89.3) The Father comes down to you as a personality only through the divine Sons of the Eternal Son. And you attain the Father by this same living way; you ascend to the Father by the guidance of this group of divine Sons. And this remains true notwithstanding that your very personality is a direct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7:7.5 (89.4) In all these widespread activities of the far-flung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Eternal Son, do not forget that the Son is a person just as truly and actually as the Father is a person. Indeed, to beings of the onetime human order the Eternal Son will be more easy to approach than the Universal Father. In the progress of the pilgrims of time through the circuits of Havona, you will be competent to attain the Son long before you are prepared to discern the Father.

7:7.6 (89.5) More of the character and merciful nature of the Eternal Son of mercy you should comprehend as you meditate on the revelation of these divine attributes which was made in loving service by your own Creator Son, onetime Son of Man on earth, now the exalted sovereign of your local universe —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7:7.7 (89.6) [Indited by a Divine Counselor assigned to formulate this statement depicting the Eternal Son of Paradise.]

제 8 편 무한한 영

⇨ 007

유랜시아 책

009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8 편 무한한 영

섹션

소개

제 1 장. 행동의 하느님

제 2 장. 무한한 영의 본성

제 3 장.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제 4 장. 신성한 사명활동의 영

제 5 장. 하느님의 현존

제 6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

PAPER 8

THE INFINITE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od of Action

2. Nature of the Infinite Spirit

3. Relation of the Spirit to the Father and the Son

4. The Spirit of Divine Ministry

5. The Presence of God

6.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소개

영원에서 되돌아가,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무한 그리고 절대 생각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그것의 신성한 표현을 위한 그러한 완전하고도 합당한 말씀을 발견할 때, 상호 표현과 병합된 행동의 우주적이고 무한한 대리자에 대하여 생각-하느님과 말씀-하느님 모두의 최극 욕망이 뒤따른다.

영원의 여명기에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들의 상호 내부의존, 그들의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 하나됨을 무한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의 무한하고도 영속하는 서약을 맺게 된다. 결코-끝남없는 이 협정은 영원의 모든 순환계에 두루 그들의 연합된 개념들의 집행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성 사건 이후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이 신성한 연합 안에 여전하시다.

우리는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의 영원함의 기원과 마주하고 있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이 동일한 그리고 무한한 행동—절대적 생각-계획의 집행—을 공동으로 착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이 어엿한 실존(實在)로 솟아난다.

INTRODUCTION

8:0.1 (90.1) BACK in eternity, when the Universal Father's “first” infinite and absolute thought finds in the Eternal Son such a perfect and adequate word for its divine expression, there ensues the supreme desire of both the Thought-God and the Word-God for a universal and infinite agent of mutual expression and combined action.

8:0.2 (90.2) In the dawn of eternity both the Father and the Son become infinitely cognizant of their mutual interdependence, their eternal and absolute oneness; and therefore do they enter into an infinite and everlasting covenant of divine partnership. This never-ending compact is made for the execution of their united concepts throughout all of the circle of eternity; and ever since this eternity event the Father and the Son continue in this divine union.

8:0.3 (90.3) We are now face to face with the eternity origin of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The very instant that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conjointly conceive an identical and infinite action — the execution of an absolute thought-plan — that very moment, the Infinite Spirit springs full-fledgedly into existence.

신(神)들의 기원의 계층을 그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나는 너희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단지 그렇게 할 뿐이다. 실체 안에서 그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실존하는 세 분이다; 그들은 실존적이다. 그들은 시간적인 시작과 끝이 없으며; 그들은 조화-협동, 최극, 궁극, 절대, 그리고 무한하다. 그들은 그들이시며 항상 이셨으며 언제까지나 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셋으로 분명하게 개별존재화 되어있지만 영원하게 연관된 개인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이다.

제 1 장. 행동의 하느님

과거의 영원 속에서, 무한한 영의 개인성구현에 따라 신성한 개인성 주기는 완전을 이루면서 완성된다. 행동의 하느님이 실존하며, 광대한 공간 무대는 거대한 창조의 드라마—우주 모험—영원한 시대들의 신성한 파노라마를 위한 장치이다.

무한한 영의 첫 번째 활동은 그의 신성한 부모들, 아버지-아버지와 어머니-아들에 대한 검열과 인식이다. 그 분, 영은 분별불가적으로 두 분 모두를 정체화한다. 그는 그들의 병합된 본성과 연합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리된 개인성들 그리고 무한 속성들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한다. 그 다음은, 초월적인 자의성과 영감이 이는 자발성과 함께, 자진하여, 신(神)의 셋째 개인은, 그의 첫째 그리고 둘째 개인과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느님에 대하여 영원한 충성심을 맹세하고 아들 하느님에 대하여 영속하는 의존을 인정한다.

영원의 주기는 이 활동행위의 본질 속에 그리고 각각의 개인성 독립성과 세분 모두의 집행적 연합에 대한 상호적 인식 안에 선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존하고 있다. 우주적 공간의 그 무대는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아들 창조자 동반자 관계의 실제 행위에 대한 집행 대리자인 행동의 하느님의 집행에 의해, 우주 아버지의 목적에 대한 창조적 전개에 중첩적이고 영원한 파노라마를 위해 마련된다.

행동의 하느님이 기능하고 그리고 죽은듯하던 공간의 저장소가 움직여 일어난다. 10억 개의 완전 구체들이 실존(實在)로 확 생긴다. 가정의 이 영원순간 이전에 파라다이스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공간-에너지들은 실존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작용성이지만, 그것들은 존재의 실재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끌어당김에 대한 물질적 실체들의 반응에 의하지 않고는, 물리적 중력에 측정될 수 없다. 이 영원하게 멀리 있는 (가정된) 이 순간에 물질적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10억 세계들이 물질화하는 바로 그 즉시,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장악 안으로 그것들을

8:0.4 (90.4) In thus reciting the order of the origin of the Deities, I do so merely to enable you to think of their relationship. In reality they are all three existent from eternity; they are existential. They are without beginning or ending of days; they are co-ordinate, supreme, ultimate, absolute, and infinite. They are and always have been and ever shall be. And they are three distinctly individualized but eternally associated person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1. THE GOD OF ACTION

8:1.1 (90.5) In the eternity of the past, upon the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divine personality cycle becomes perfect and complete. The God of Action is existent, and the vast stage of space is set for the stupendous drama of creation — the universal adventure — the divine panorama of the eternal ages.

8:1.2 (90.6) The first act of the Infinite Spirit is the inspection and recognition of his divine parents, the Father-Father and the Mother-Son. He, the Spirit, unqualifiedly identifies both of them. He is fully cognizant of their separate personalities and infinite attributes as well as of their combined nature and united function. Next, voluntarily, with transcendent willingness and inspiring spontaneity, the Third Person of Deity, notwithstanding his equality with the First and Second Persons, pledges eternal loyalty to God the Father and acknowledges everlasting dependence upon God the Son.

8:1.3 (90.7) Inherent in the nature of this transaction and in mutual recognition of the personality independence of each and the executive union of all three, the cycle of eternity is established. The Paradise Trinity is existent. The stage of universal space is set for the manifold and never-ending panorama of the creative unfolding of the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and by the execution of the God of Action, the executive agency for the reality performances of the Father-Son creator partnership.

8:1.4 (91.1) The God of Action functions and the dead vaults of space are astir. One billion perfect spheres flash into existence. Prior to this hypothetical eternity moment the space-energies inherent in Paradise are existent and potentially operative, but they have no actuality of being; neither can physical gravity be measured except by the reaction of material realities to its incessant pull. There is no material universe at this (assumed) eternally distant moment, but the very instant that one billion worlds materialize, there is in evidence gravity sufficient and adequate to hold

붙잡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중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하느님들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 에너지가 확 생기며, 넘쳐흐르는 이 영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에 의해 즉시 장악된다. 그래서 2중 중력-포용된 우주는 무한의 에너지와 접촉하고 있고 신성의 영 안에 잠겨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생명의 토양이 무한한 영의 연관된 지능 순환회로들 안에서 현시되는 마음의 의식함에 대하여 준비된다.

잠재적인 실존의 이 씨앗들이 하느님들의 중앙 창조에 두루 확산하게 되면, 아버지가 활동하고, 창조체 개인성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현존이 모든 조직된 우주를 채우고 모든 사물과 존재를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개념들과 연합된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 의해 자신과 함께 그리고 자신 안에서 창조되는 이 중앙우주인, 하보나 세계들의 탄생과 동시에 영원화를 이룬다. 셋째 개인은 바로 이 공동 창조의 활동에 의해 신(神)구현화 되며, 그리하여 그는 언제까지나 공동 창조자가 된다.

이때는, 그들의 공동 연관이고 배타적 집행자인,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행동에 의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적 확대의 웅장하고도 경이로운 시기이다. 휘저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이 강대한 활동행위들을 확증하려는 무한한 영의 빈약한 개방자료를 갖고 있으며, 그는 다만 중앙우주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개인성과 의식적 실존(實在)에 대한 그의 달성과 동시에 그것으로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한한 영은 그가 영원하기 때문에 중앙우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들의 우주의 역사의 전통적인 시작점이다. 만물의 중앙에 존재하고, 매우 절묘하게 기능하고 있는 광대한 우주를 구체화시킨 창조 에너지와 행정-관리적 지혜의, 이 엄청난 분출 이전의 사건 또는 활동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고 어떤 기록도 실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너머에는 탐구할 수 없는 영원의 활동행위 그리고 무한함의 심연(深淵)-절대 신비—가 깔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필사 창조체들의 시간-공간에-몸이 있고 그리고 공간-조건이 갖추어진 마음에 대한 해석상의 겸손으로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순차적 기원을 그렇게 묘사한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 역사를 마음에 그려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출발점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며, 나는 영원의 역사적 개념에 접근하는 이 기법을 제공하도록 지도를 받아왔다. 물질적 마음 안에서는, 첫째 원인이 있어야 모순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역사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그리고 창조적 활동의 모든 영역

them in the everlasting grasp of Paradise.

8:1.5 (91.2) There now flashes through the creation of the Gods the second form of energy, and this outflowing spirit is instantly grasped by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us the twofold gravity-embraced universe is touched with the energy of infinity and immersed in the spirit of divinity. In this way is the soil of life prepared for the consciousness of mind made manifest in the associated intelligence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8:1.6 (91.3) Upon these seeds of potential existence, diffused throughout the central creation of the Gods, the Father acts, and creature personality appears. Then does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Deities fill all organized space and begin effectively to draw all things and beings Paradiseward.

8:1.7 (91.4) The Infinite Spirit eternalizes concurrently with the birth of the Havona worlds, this central universe being created by him and with him and in him in obedience to the combined concepts and united will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e Third Person deities by this very act of conjoint creation, and he thus forever becomes the Conjoint Creator.

8:1.8 (91.5) These are the grand and awful times of the creative expans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by, and in, the action of their conjoint associate and exclusive executive,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re exists no record of these stirring times. We have only the meager disclosures of the Infinite Spirit to substantiate these mighty transactions, and he merely verifies the fact that the central universe and all that pertains thereto eternalized simultaneously with his attainment of personality and conscious existence.

8:1.9 (91.6) In brief, the Infinite Spirit testifies that, since he is eternal, so also is the central universe eternal. And this is the traditional starting point of the histo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bsolutely nothing is known, and no records are in existence, regarding any event or transaction prior to this stupendous eruption of creative energy and administrative wisdom that crystallized the vast universe which exists, and so exquisitely function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Beyond this event lie the unsearchable transactions of eternity and the depths of infinity — absolute mystery.

8:1.10 (91.7) And we thus portray the sequential origi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an interpretative condescension to the time-bound and space-conditioned mind of mortal creatures. The mind of man must have a starting point for the visualization of universe history, and I have been directed to provide this technique of approach to the historic concept of eternity. In the material mind, consistency demands a First Cause; therefore do we postulate the Universal Father as

에 있어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는 사실을 모든 창조체 마음들에게 동시에 가르치면서, 우주 아버지를 모든 창조의 첫째 근원이며 절대적 중심으로 가정한단다. 그리고 우리는 파라다이스 섬의 그리고 분별불가, 우주, 그리고 신(神) 절대자들의 실체성과 영원성을 어떤 감각에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

시간 자녀들의 물질적 마음은, 영원 속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에 그려보는 것에 도달하기가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자녀든지 처음에 자녀-부모 상황의 관계들을 숙지함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을 하나의 전체로써 가족을 포용하기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실체로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 후에 그 자녀의 성숙되는 마음은 가족 관계의 개념을, 공동체, 종족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계성으로, 그 다음에는 우주, 초우주,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것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무한한 영의 본성

공동 창조자는 영원으로부터 계시며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 온통 그리고 분별-자격 없이 하나이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본성뿐만 아니라 기원 아들의 본성 역시 완전성 속에 반영한다.

셋째 근원이며 중심은 여러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우주 영, 최극 안내자, 공동 창조자, 신성한 집행자, 무한 마음, 영들의 영, 파라다이스 어머니 영, 공동 행위자, 최종 조화-협동자, 전재(全在) 영, 절대 지능, 신성한 행동;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때때로 그는 조화우주 마음과 혼동되고 있다.

신(神)의 셋째 개인을 무한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데, 이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을 기본적 실체로 보고, 그리고 영과 함께 마음을 물질에 뿌리를 둔 것으로 가정(假定)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향이 있는 물질적 창조체들은, 만일 그가 무한 실체, 우주 조직가, 또는 개인성 조화-협동자로 불린다면 셋째 근원이며 중심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신성의 우주 계시로서의, 무한한 영은 탐구될 수 없으며 철저히 인간 이해력을 벗어난다. 영의 절대성을 감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우주 아버지의 무한성을 묵상하고 기원 아들의 영원성에 대한 경이로움 속에서 서 있으면 된다.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는 정말로 신비로움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더욱 그러하다. 아버지의 본성의 모든 측면에서, 공동 창조자가 그의 무한성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낸다. 주(主)우주 가 결국

the First Source and the Absolute Center of all creation, at the same time instructing all creature minds that the Son and the Spirit are coeternal with the Father in all phases of universe history and in all realms of creative activity. And we do this without in any sense being disregarding of the reality and eternity of the Isle of Paradise and of the Unqualified, Universal, and Deity Absolutes.

8:1.11 (92.1) It is enough of a reach of the material mind of the children of time to conceive of the Father in eternity. We know that any child can best relate himself to reality by first mastering the relationships of the child-parent situation and then by enlarging this concept to embrace the family as a whole. Subsequently the growing mind of the child will be able to adjust to the concept of family relations, to relationships of the community, the race, and the world, and then to those of the universe, the superuniverse, even the universe of universes.

2. NATURE OF THE INFINITE SPIRIT

8:2.1 (92.2) The Conjoint Creator is from eternity and is wholly and without qualification one with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reflects in perfection not only the nature of the Paradise Father but also the nature of the Original Son.

8:2.2 (92.3)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known by numerous titles: the Universal Spirit, the Supreme Guide, the Conjoint Creator, the Divine Executive, the Infinite Mind, the Spirit of Spirits, the Paradise Mother Spirit, the Conjoint Actor, the Final Co-ordinator, the Omnipresent Spirit, the Absolute Intelligence, the Divine Action; and on Urantia he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cosmic mind.

8:2.3 (92.4) It is altogether proper to denominate the Third Person of Deity the Infinite Spirit, for God is spirit. But material creatures who tend towards the error of viewing matter as basic reality and mind, together with spirit, as postulates rooted in matter, would better comprehend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f he were called the Infinite Reality, the Universal Organizer, or the Personality Co-ordinator.

8:2.4 (92.5) The Infinite Spirit, as a universe revelation of divinity, is unsearchable and utterly beyond human comprehension. To sense the absoluteness of the Spirit, you need only contemplate the inf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tand in awe of the eternity of the Original Son.

8:2.5 (92.6) There is mystery indeed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but not so much as in the Father and the Son. Of all aspects of the Father's nature, the Conjoint Creator most strikingly discloses his infinity. Even if the master universe eventually

에는 무한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더라도, 공동 행위자의 영 현존, 에너지 통제 그리고 마음 잠재는 그러한 무제한 창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발견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우주 아버지의 완전성과 정의로움 그리고 사랑을 공유하지만,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의 속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대우주에 대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비 사명활동자가 된다. 언제나 그리고 항상—우주적으로 그리고 영원히—영은 자비의 사명활동자인데, 하느님의 사랑을 신성한 아들들이 계시하듯이 신성한 영이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모든 선(善)이 아버지 안에서 기원되기 때문에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善)을 소유할 수 없지만, 영의 활동들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들의 불변성은 영 존재들에게 그리고 그 구체들의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과 끊임없는 봉사에 의해 매우 실제적인 것이 된다.

공동 창조자는 아버지의 사고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성격 전체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신성의 이 장엄한 특색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마음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지혜에 복종하여 조화우주 마음의 최극-인접 차원들에서 조화-협동을 이룬다.

제 3 장.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영원한 아들이 우주 아버지의 “첫 번째” 절대 그리고 무한 사고에 대한 말씀 표현이듯이, 공동 행위자는 절대적 생각-말씀 연합의 아버지-아들 개인성 동반자 관계에 의한 병합된 행동을 위한 “첫 번째” 완성된 창조적 개념, 곧 계획의 완전한 실행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중앙이면서도 명령에 의한 창조와 함께 영원성을 갖게 되며, 오직 이 중앙 창조만이 모든 우주들 중에서 실존으로서 영원하다.

셋째근원이 개인성구현된 이후로, 첫째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모든 가능한 것을 위임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모든 가능한 권한과 힘을 공동 행위자에게 증여한다.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동반자들로써 그리고 그들의 조화-협동 개인성들을 통하여, 실존하게 되는 모든 하보나-이후 우주를 계획하고 만든다. 영은 최초이자 중앙의 창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해 유지하는 동일한 개인적 관계를 뒤이어 일어나는 모든 창조 안의 아들에 대해 유지한다.

expands to infinity, the spirit presence, energy control, and mind potential of the Conjoint Actor will be found adequate to meet the demands of such a limitless creation.

8:26 (92.7) Though in every way sharing the perfection, the righteousness, and th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Infinite Spirit inclines towards the mercy attributes of the Eternal Son, thus becoming the mercy minister of the Paradise Deities to the grand universe. Ever and always — universally and eternally — the Spirit is a mercy minister, for, as the divine Sons reveal the love of God, so the divine Spirit depicts the mercy of God.

8:27 (93.1) It is not possible that the Spirit could have more of goodness than the Father since all goodness takes origin in the Father, but in the acts of the Spirit we can the better comprehend such goodness. The Father's faithfulness and the Son's constancy are made very real to the spirit beings and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spheres by the loving ministry and ceaseless service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8:28 (93.2) The Conjoint Creator inherits all the Father's beauty of thought and character of truth. And these sublime traits of divinity are coordinated in the near-supreme levels of the cosmic mind in subordination to the infinite and eternal wisdom of the unconditioned and limitless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3. RELATION OF THE SPIRIT TO THE FATHER AND THE SON

8:31 (93.3) As the Eternal Son is the word expression of the “first” absolute and infinit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so the Conjoint Actor is the perfect execution of the “first” completed creative concept or plan for combined action by the Father-Son personality partnership of absolute thought-word unio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ternalizes concurrently with the central or fiat creation, and only this central creation is eternal in existence among universes.

8:32 (93.4) Since the personalization of the Third Source, the First Source no more personally participates in universe creation. The Universal Father delegates everything possible to his Eternal Son; likewise does the Eternal Son bestow all possible authority and power upon the Conjoint Creator.

8:33 (93.5) The Eternal Son and the Conjoint Creator have, as partners and through their co-ordinate personalities, planned and fashioned every post-Havona universe which has been brought into existence. The Spirit sustains the same personal relation to the Son in all subsequent creation that the Son sustains to the

영원한 아들의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창조 영이 너희와 너희 우주를 창조하였다; 그들이 이미 조직한 것을 아버지가 신실함으로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일을 육성시키고 지탱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 만든 창조체들에 대한 사명 활동은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에게 맡겨진다.

무한한 영은, 모든-사랑의 아버지와 모든-자비의 아들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있는 진리를-사랑 넘치는 모든 혼들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그들 공동의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효력을 발휘하는 대리자다. 영원한 아들이 우주들의 창조체를 위한 완전성 달성이라는 그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상승 프로젝트가 아버지-아들 계획이 되는 순간, 무한한 영은 그들의 연합된 그리고 영원한 목적의 실행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관리행정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무한한 영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그리고 영 개인성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자원들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친다; 그는 생존되는 의지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 완전의 신성한 경지로 드높이는 엄청난 계획에 모든 것을 전념해 왔다.

무한한 영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완벽하고 배타적이며 우주적인 계시이다. 아버지-아들 동반자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을 통하여 생각-말씀 연합의 공동 대표자를 갖게 되어야만 한다.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큰길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을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상승하는 시간 존재들은 오직 영의 끈기 있는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의 중심에서 무한한 영은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의해 달성될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첫 번째이다. 셋째 개인은 둘째 그리고 첫째 개인을 감싸고 있으며 그러므로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제시되려는 모든 후보자들에 의해 항상 처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많은 길 안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대표하고 비슷하게 봉사한다.

제 4 장. 신성한 사명활동의 영

파라다이스 중력이 만물을 거기에서 함께 잡아두는 물리적 우주와 나란히 평행하여, 영적 우주는 거기에서 아들의 말씀이 하느님의 생각을 해석하고 그리고 “육신이 되어” 연관된 창조자들의 병합된 본성인 사랑 넘치는 자비를 실증한다. 그러나 이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창조 전체 안에 그리

Father in the first and central creation.

8:3.4 (93.6) A Creator Son of the Eternal Son and a Creative Spirit of the Infinite Spirit created you and your universe; and while the Father in faithfulness upholds that which they have organized, it devolves upon this Universe Son and this Universe Spirit to foster and sustain their work as well as to minister to the creatures of their own making.

8:3.5 (93.7) The Infinite Spirit is the effective agent of the all-loving Father and the all-merciful Son for the execution of their conjoint project of drawing to themselves all truth-loving souls on all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The very instant the Eternal Son accepted his Father's plan of perfection attainment for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e moment the ascension project became a Father-Son plan, that instant the Infinite Spirit became the conjoint administrator of the Father and the Son for the execution of their united and eternal purpose. And in so doing the Infinite Spirit pledged all his resources of divine presence and of spirit personalities to the Father and the Son; he has dedicated *all* to the stupendous plan of exalting surviving will creatures to the divine heights of Paradise perfection.

8:3.6 (93.8) The Infinite Spirit is a complete, exclusive, and universal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All knowledge of the Father-Son partnership must be had through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representative of the divine thought-word union.

8:3.7 (93.9) The Eternal Son is the only avenue of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only means of attaining the Eternal Son. Only by the patient ministry of the Spirit are the ascendant beings of time able to discover the Son.

8:3.8 (94.1)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Infinite Spirit is the first of the Paradise Deities to be attained by the ascending pilgrims. The Third Person enshrouds the Second and the First Persons and therefore must always be first recognized by all who are candidates for presentation to the Son and his Father.

8:3.9 (94.2) And in many other ways does the Spirit equally represent and similarly serve the Father and the Son.

4. THE SPIRIT OF DIVINE MINISTRY

8:4.1 (94.3) Paralleling the physical universe wherein Paradise gravity holds all things together is the spiritual universe wherein the word of the Son interprets the thought of God and, when “made flesh,” demonstrates the loving mercy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associated Creators. But

고 그것들에 두루, 무한한 영과 그의 영 자손들이 그들이 협동으로 고안하고 만든 지능적 자녀들에게 신성한 부모들의 병합된 자비, 인내심 그리고 영속하는 애정을 보여주는 광대한 무대가 존재한다. 마음에 대한 영구적인 사명활동은 영의 신성한 성격의 본질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의 모든 영 자손은 사명활동에 대한 이 열정, 봉사하고자 하는 이 신성한 충동에 참여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아들은 자비이고, 영은 사명활동—모든 지능 창조체에 대한 신성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의 사명활동—이다. 영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개인화구현이다; 그의 안에서 그들은 우주적 봉사를 위해 영원하게 연합되어 있다. 영은 창조체 창조에 적용되는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사랑이다.

유란시아에서는 무한한 영이 전재(全在)하는 영향력, 우주적 현존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너희가 그를 실제적 사명활동의 개인적 현존으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파라다이스 영의 사명활동은 그의 조화-협동 영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있는 창조된 존재들을 돌보는 권속 개인성들 각각에게 모범적이고 영감을 주는 원형들이다. 이 신성한 우주 안에서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초월적인 일곱 가지 모습들 속에 충만하게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그는 하보나의 순환회로에서의 일곱 번 증여에 기원적 미가엘 아들과 함께 하였고, 그리하여 이들 높은 곳의 완전한 이들 순환계를 지나가는 시간의 각 순례자에게 공감해주고 납득해주는 영 사명활동자가 된다.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를 위해 창조자관계 책임을 지기로 수락할 때,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은 이 미가엘 아들이 창조하는 모험의 자기 임무 위에서 나아갈 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자들로서 자신들을 바친다. 특히 창조 딸의 개인, 지역우주 어머니 영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달성을 향해 물질적 창조체들의 상승을 육성하는 과업에 헌신되어 있는 무한한 영을 발견한다. 그리고 창조체 사명활동의 이 모든 작업은 이 지역우주 창조자 아들들의 목적들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리고 그 개인성들과 긴밀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개인성을 계시하는 거대한 임무에 하느님의 아들이 참여하고 있듯이, 무한한 영은 각 우주의 모든 자녀들의 개별 마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사랑을 계시하는 끝없는 사명활동에 전념되어 있다. 이 지역 창조계 안에서 영은 하느님의 아들들 중 어떤 이처럼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물질적 인종들에게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무한한 영과 그의 조화-협동 영들은 자신들을 낮추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 실존의 낮은 경로들을 통하여 너희 옆에서 너희를 안내하는 천사들로서 나타나기까지, 놀

in and through all this material and spiritual creation there is a vast stage whereon the Infinite Spirit and his spirit offspring show forth the combined mercy, patience, and everlasting affection of the divine parents towards the intelligent children of their co-operative devising and making. Everlasting ministry to mind is the essence of the Spirit's divine character. And all the spirit offspring of the Conjoint Actor partake of this desire to minister, this divine urge to service.

8:4.2 (94.4) God is love, the Son is mercy, the Spirit is ministry — the ministry of divine love and endless mercy to all intelligent creation. The Spirit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Father's love and the Son's mercy; in him are they eternally united for universal service. The Spirit is *love applied* to the creature creation, the combined love of the Father and the Son.

8:4.3 (94.5) On Urantia the Infinite Spirit is known as an omnipresent influence, a universal presence, but in Havona you shall know him as a personal presence of actual ministry. Here the ministry of the Paradise Spirit is the exemplary and inspiring pattern for each of his co-ordinate Spirits and subordinate personalities ministering to the created being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In this divine universe the Infinite Spirit fully participated in the seven transcendental appearances of the Eternal Son; likewise did he participate with the original Michael Son in the seven bestowals upon the circuits of Havona, thereby becoming the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spirit minister to every pilgrim of time traversing these perfect circles on high.

8:4.4 (94.6) When a Creator Son of God accepts the creatorship charge of responsibility for a projected local univers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pledge themselves as the tireless ministers of this Michael Son when he goes forth on his mission of creative adventure. Especially in the persons of the Creative Daughter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do we find the Infinite Spirit devoted to the task of fostering the ascension of the material creatures to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piritual attainment. And all this work of creature ministry is done in perfect harmony with the purposes, an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personalities, of the Creator Sons of these local universes.

8:4.5 (94.7) As the Sons of God are engaged in the gigantic task of revealing the Father's personality of love to a universe, so is the Infinite Spirit dedicated to the unending ministry of revealing the combined love of the Father and the Son to the individual minds of all the children of each universe. In these local creations the Spirit does not come down to the material races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s do certain of the Sons of God, but the Infinite Spirit and his co-ordinate Spirits do downstep themselves, do joyfully

라운 일련의 신성 감소 과정을 기쁨으로 견딘다.

바로 이 일련의 감소 과정에 의해 무한한 영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동물-기원 구체들의 각 존재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영은 자신의 실존을 조금도 무효로 만들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의 중앙에서 신(神)의 셋째 개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공동 창조자는 정말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위대한 사명활동 개인성, 우주 자비 사명활동자이다. 영의 사명활동을 이해하려면, 그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고 아들의 영원한 자비에 대한 병합된 묘사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아무튼, 영의 사명활동이 오로지 영원한 아들과 우주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무한한 영 역시 자기 자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영역의 창조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셋째개인은 신성한 존엄으로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비의 우주적 사명활동을 증여한다.

무한한 영의 창조 가족의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랑하는 그리고 지침이 없는 사명활동을 사람이 더 많이 배울 때,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병합된 행동의 초월적 본성과 비할 데 없는 성격을 훨씬 더 찬양하고 찬미할 것이다. 정말로 이 영은 “항상 정의(正義)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며 “그들의 기도에 항상 열려있는 신성한 귀”이다.

제 5 장. 하느님의 현존

무한한 영의 현저한 속성은 전재(全在)이다. 모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만물에-스며드는 이 영이 어디에나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이고 신성한 마음의 현존과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이다. 신(神)의 둘째 개인 그리고 셋째 개인 모두는 그들의 항상-현존하는 영들에 의해 모든 세계에서 나타내진다.

아버지는 무한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조절자들의 증여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성의 순환회로화에 있어서, 아버지가 홀로 활동하지만, 지능존체들과의 영 기체의 접촉에서는 그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과 영들을 이용한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아들과 또는 공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현존한다; 그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현존한다. 아버지는 가장 확실하게 어디에나 현존하며, 우리는 이들 다양하지만 그러나 연관된 기체, 영향 그리고 현존들의 어느 부분 또는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의 현존을 식별한다.

너희의 종교적 기록들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undergo an amazing series of divinity attenuations, until they appear as angels to stand by your side and guide you through the lowly paths of earthly existence.

8:4.6 (95.1) By this very diminishing series the Infinite Spirit does actually, and as a person, draw very near to every being of the animal-origin spheres. And all this the Spirit does without in the least invalidating his existence as the Third Person of Deity at the center of all things.

8:4.7 (95.2) The Conjoint Creator is truly and forever the great ministering personality, the universal mercy minister. To comprehend the ministry of the Spirit, ponder the truth that he is the combined portrayal of the Father's unending love and of the Son's eternal mercy. The Spirit's ministry is not, however, restricted solely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Eternal Son and the Universal Father. The Infinite Spirit also possesses the power to minister to the creatures of the realm in his own name and right; the Third Person is of divine dignity and also bestows the universal ministry of mercy in his own behalf.

8:4.8 (95.3) As man learns more of the loving and tireless ministry of the lower orders of the creature family of this Infinite Spirit, he will all the more admire and adore the transcendent nature and matchless character of this combined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Indeed is this Spirit “the eyes of the Lord which are ever over the righteous” and “the divine ears which are ever open to their prayers.”

5. THE PRESENCE OF GOD

8:5.1 (95.4) The outstanding attribute of the Infinite Spirit is omnipresence.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 is everywhere present this all-pervading spirit, which is so akin to the presence of a universal and divine mind. Both the Second Person and the Third Person of Deity are represented on all worlds by their ever-present spirits.

8:5.2 (95.5) The Father is *infinite* and is therefore limited only by volition. In the bestowal of Adjusters and in the encirclement of personality, the Father acts alone, but in the contact of spirit forces with intelligent beings, he utilizes the spirits and personalitie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t will spiritually present equally with the Son or with the Conjoint Actor; he is present *with* the Son and *in* the Spirit. The Father is most certainly everywhere present, and we discern his presence by and through any and all of these diverse but associated forces, influences, and presences.

8:5.3 (95.6) In your sacred writings the term *Spirit of*

라는 용어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무한한 영과 너희 지역우주의 창조 영 모두를 번갈아 나타내곤 하는 것 같다. 성령은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이 창조 딸의 영적 순환회로이다. 성령은 각 지역우주에 토착적인 순환회로이고 그 창조의 영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무한한 영은 전재(全在)이다.

많은 영적 영향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존재한다. 심지어는 생각 조절자들의 활동도, 다른 모든 작용들과는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영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병합된 영향들의 영 사명활동과 일정하게 부합한다. 이 영적 현존들이 유란시아인 들의 삶 속에서 작용할 때,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들의 다양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혼 위에서 그들은 하나의 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연합된 이 영적 보살핌이 체험될 때, 그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줄 수 있고 높은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 없음을 제시할 수 있는” 최극자의 영향이 된다.

무한한 영이 공동행위자임을;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기능함을; 그가 그 자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아들로서 현존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인정하여 그리고 많은 추가적 이유들로 인하여 무한한 영의 영 현존은 종종 “하느님의 영”으로 간주된다.

모든 영적 사명활동의 연락을 하느님의 영으로 계속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러한 연락이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영 하느님, 그리고 칠중 하느님의 영들 -심지어는 최극자 하느님 영의 진정한 연합이기 때문이다.

제 6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광범위한 증여와 멀리 퍼지는 분배가, 그의 개인성의 사실성을 흐리게 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손상되게 만들지 말라. 무한한 영은 우주 현존, 영원한 행동, 조화우주 힘,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우주 마음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이지만, 또한 그는 하나의 참되고 신성한 개인성이다.

무한한 영은 하나의 완벽하고 완전한 개인성,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동일 존재 그리고 조화-협동 존재이다. 공동 창조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주들의 좀 더 높은 지능존재들에게는 실제이며 눈에 보이고; 정말로 그 이상인데, 이는 모든 상속자들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이다.

God seems to be used interchangeably to designate both the Infinite Spirit on Paradise and the Creative Spirit of your local universe.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ual circuit of this Creative Daughter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The Holy Spirit is a circuit indigenous to each local universe and is confined to the spiritual realm of that creation; but the Infinite Spirit is omnipresent.

8:5.4 (95.7) There are many spiritual influences, and they are all as *one*. Even the work of the Thought Adjusters, though independent of all other influences, unvaryingly coincides with the spirit ministry of the combine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s these spiritual presences operate in the lives of Urantians, they cannot be segregated. In your minds and upon your souls they function as one spirit, notwithstanding their diverse origins. And as this united spiritual ministration is experienced, it becomes to you the influence of the Supreme, “who is ever able to keep you from failing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your Father on high.”

8:5.5 (96.1) Ever remember that the Infinite Spirit is the *Conjoint* Actor; both the Father and the Son are functioning in and through him; he is present not only as himself but also as the Father and as the Son and as the Father-Son. In recognition of this and for many additional reasons the spirit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pirit of God.”

8:5.6 (95.2) It would also be consistent to refer to the liaison of all spiritual ministry as the spirit of God, for such a liaison is truly the union of the spirits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Spirit, and God the Sevenfold — even the spirit of God the Supreme.

6.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8:6.1 (96.3) Do not allow the widespread bestowal and the far-flung distribu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o obscure or otherwise detract from the fact of his personality. The Infinite Spirit is a universe presence, an eternal action, a cosmic power, a holy influence, and a universal mind; he is all of these and infinitely more, but he is also a true and divine personality.

8:6.2 (96.4) The Infinite Spirit is a complete and perfect personality, the divine equal and co-ordinat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Conjoint Creator is just as real and visible to the higher intelligences of the universes as are the Father and the Son; indeed more so, for it is the Spirit whom all ascenders must attain before they may approach the Father through the Son.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은 너희가 개인성과 연관하는 모든 속성들을 소유하게 된다. 영은 절대 마음을 자질로서 부여 받고 있다: “영은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느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영은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자신의 선물을 증여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일들은 하나이고 아주 똑같은 영이며, 모든 사람에게 따로따로 그리고 그가 바라는 대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영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그의 슬픔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을 슬프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무한한 영을 파라다이스 신(神)으로 보든지 또는 지역우주 창조 영으로 보든지, 우리는 공동 창조자가 셋째근원이며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개인임을 발견한다. 이 신성한 개인성은 또한 우주에게 하나의 개인으로서 반응한다. 영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귀 있는 자는 영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영 자신이 너희를 위해 중재에 나선다.” 영은 창조된 존재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개인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설사 우주들의 우주의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본다 해도,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기원되는 각가지 존재들로 구성된 설명되지 않은 큰 무리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이 동일한 조화-협동 신(神)을 우리가 고찰한다 하더라도, 설사 영의 전재(全在)성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동일한 셋째근원이며 중심이 하나의 개인, 만물과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공동 창조자인 것을 단언한다.

우주의 관리-행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상호-연관된다. 비록 각자가 모든 창조에 한 개인적 사명활동으로 관여하지만, 세 분 모두는,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창조의 봉사와 통제안에서, 신성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 그리고 분별불가한 완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적으로, 항상 계시는데, 이는 영이 아버지 같고 아들 같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두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까지나 하나와 같기 때문이다.

[무한한 영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임명된 유퍼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유란시아에 제시되었음]

8:6.3 (96.5)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is possessed of all the attributes which you associate with personality. The Spirit is endowed with absolute mind: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The Spirit is endowed not only with mind but also with will. In the bestowal of his gifts it is recorded: “But all these works that one and the selfsame Spirit, dividing to every man severally and as he wills.”

8:6.4 (96.6) “The love of the Spirit” is real, as also are his sorrows; therefore “Grieve not the Spirit of God.” Whether we observe the Infinite Spirit as Paradise Deity or as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we find that the Conjoint Creator is not only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ut also a divine person. This divine personality also reacts to the universe as a person. The Spirit speaks to you,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you.” The Spirit exerts a direct and personal influence upon created beings,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8:6.5 (96.7) Even though we behold the phenomenon of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remote world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even though we envisage this same co-ordinating Deity acting in and through the untold legions of the manifold beings who tak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ven though we recognize the omnipresence of the Spirit, nonetheless, we still affirm that this same Third Source and Center is a person, the Conjoint Creator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and all universes.

8:6.6 (96.8)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s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perfectly and eternally interassociated. Though each is engaged in a personal ministry to all creation, all three are divinely and absolutely interlocked in a service of creation and control which forever makes them one.

8:6.7 (97.1)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Father and the Son are mutually present, always and in unqualified perfection, for the Spirit is like the Father and like the Son, and also like the Father and the Son as they two are forever one.

8:6.8 (97.2) [Presented on Urantia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commissioned by the Ancients of Days to portray the nature and work of the Infinite Spirit.]

제 9 편 우주에 대한 무한한 영의 관계

⇨ 008

유랜시아 책

010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9 편 우주에 대한 무한한 영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

제 2 장. 전재(全在)하는 영

제 3 장. 우주 조종자

제 4 장. 절대 마음

제 5 장. 마음의 사명활동

제 6 장. 마음-중력 순환회로

제 7 장. 우주 반영

제 8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PAPER 9

REL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2. The Omnipresent Spirit

3. The Universal Manipulator

4. The Absolute Mind

5. The Ministry of Mind

6. The Mind-Gravity Circuit

7. Universe Reflectivity

8.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소개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파라다이스의 현존 안에서, 자신들을 개인성구현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 생소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 영원 상황에서 공동 행위자가 절대 마음과 조화-협동을 이루고 에너지 조종의 독특한 특권들을 자질로서 부여 받은 무제한적 영성으로서 개인성구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전조침이 없었다. 그의 존재로서의 나타남은, 중심화 하는 완전의 속박에서의 그리고 개인성 절대론의 족쇄에서의 아버지의 해방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해방은 섬기는 영들로서 봉사하도록 잘 적응되는 존재들 그리고 뒤이어지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물질적 창조체들까지 창조하는 공동 행위자의 놀라운 힘에서 드러난다.

아버지는 사랑과 의지에 있어서, 영적 생각과 목적에 있어서 무한하다; 그는 우주 유지자이다. 아들은 지혜와 진리에 있어서, 영적 표현과 해석에 있어서 무한하며; 그는 우주 계시자이다. 파라다이스는 기체 자질-부여를 위한 잠재에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 권역을 위한 수용능력 안에서 무한

INTRODUCTION

9:0.1 (98.1) A STRANGE thing occurred when, in the presence of Paradis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unite to personalize themselves. Nothing in this eternity situation foreshadows that the Conjoint Actor would personalize as an unlimited spirituality coordinated with absolute mind and endowed with unique prerogatives of energy manipulation. His coming into being completes the Father's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centralized perfection and from the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And this liberation is disclosed in the amazing power of the Conjoint Creator to create beings well adapted to serve as ministering spirits even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subsequently evolving universes.

9:0.2 (98.2) The Father is infinite in love and volition, in spiritual thought and purpose; he is the universal upholder. The Son is infinite in wisdom and truth, in spiritual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he is the universal revealer. Paradise is infinite in potential for force endowment and in capacity for energy

하다; 그것은 우주 안정자이다. 공동 행위자는 합성하는 독특한 특권, 모든 존재하는 우주 에너지들, 모든 실제적 우주 영들, 그리고 모든 실제적 우주 지능들을 조화-협동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 안에서 나타난 각가지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계의 우주 통합자이다.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는 우주적이고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영은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아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안정되고, 변함없고 의로운 공의(公義)의 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베푼다. 그의 영향과 개인성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너희를 알고 진정으로 너희를 납득한다.

우주에 두루,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들이 모든 공간의 기세와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조종한다.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마찬가지로,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에 대해 응답한다. 공동 행위자는 하느님의 합일성에 대한 계시이며, 그의 안에 만물—사물, 의미, 그리고 가치; 에너지, 마음, 그리고 영들—이 이루어져 있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가득 퍼져있다; 그는 영원의 순환계에 내주한다; 그리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며 변함없으며—절대이다.

제 1 장.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여러 이름들, 모든 정의되어지는 관계성과 기능의 인식으로 알려져 있다: 영 하느님으로서, 그는 아들 하느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동등한 조화-협동하는 그리고 신성한 개인성이다. 무한한 영으로서, 그는 전재(全在)하는 영적 영향력이다. 우주 조종자로서, 그는 힘-통제 창조체들의 조상이며 공간의 조화우주 기세들을 활성화시키는 이이다. 공동 행위자로서, 그는 아버지-아들의 공동 대표자이며 동반자신분 집행자다. 절대 마음으로서, 그는 우주 전반에 걸친 지성 자질의 근원이다. 행동의 하느님으로서, 그는 동작과 변화 그리고 관계의 명백한 조상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들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기인되고 일부는 아들로부터 기인되지만, 반면에 아버지 또는 아들 안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영구화시키는 아버지-아들 동반자 관계가 파라다이스의 절대성이라는 영원한 사실과 공명 속에서 그리고 인식 속에서 일치하여 기능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설명될 수 없는 속성들이 여전

dominance; it is the universal stabilizer. The Conjoint Actor possesses unique prerogatives of synthesis, infinite capacity to co-ordinate all existing universe energies, all actual universe spirits, and all real universe intellect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the universal unifier of the manifold energies and diverse creations which have appeared in consequence of the divine plan and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9:0.3 (98.3)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Creator, is a universal and divine minister. The Spirit unceasingly ministers the Son's mercy and the Father's love, even in harmony with the stable, unvarying, and righteous justice of the Paradise Trinity. His influence and personalities are ever near you; they really know and truly understand you.

9:0.4 (98.4) Throughout the universes the agencies of the Conjoint Actor ceaselessly manipulate the forces and energies of all space. Lik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Third is responsive to both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The Conjoint Actor is the revelation of the unity of God, in whom all things consist — things, meanings, and values; energies, minds, and spirits.

9:0.5 (98.5) The Infinite Spirit pervades all space; he indwells the circle of eternity; and the Spirit, like the Father and the Son, is perfect and changeless — absolute.

1.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1.1 (98.6)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known by many names, all designative of relationship and in recognition of function: As God the Spirit, he is the personality co-ordinate and divine equal of God the Son and God the Father. As the Infinite Spirit, he is an omnipresent spiritual influence. As the Universal Manipulator, he is the ancestor of the power-control creatures and the activator of the cosmic forces of space. As the Conjoint Actor, he is the joint representative and partnership executive of the Father-Son. As the Absolute Mind, he is the source of the endowment of intellect throughout the universes. As the God of Action, he is the apparent ancestor of motion, change, and relationship.

9:1.2 (99.19) Some of the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derived from the Father, some from the Son, while still others are not observed to be actively and personally present in either the Father or the Son — attributes that can hardly be explained except by assuming that the Father-Son partnership which eternalize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consistently functions in consonance with, and in recognition of, the eternal

히 있다. 공동 창조자는 신(神)의 첫째 그리고 둘째 개인의 병합된 그리고 무한한 개념의 충만함을 체현한다.

너희가 아버지를 기원적 창조자로 상상하고 아들을 영적 관리행정자로 상상하는 반면, 너희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우주 조화-협동자, 무제한적 협동의 사명활동자로 생각해야만 한다. 공동 행위자는 모든 실재적 실체의 상호-관계자이다;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말하는 신(神) 보고(寶庫)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중앙 섬의 물질적 절대성을 영원하게 여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진보라는 우주 계층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는 공동 창조자와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권역이다. 어떤 실재적 또는 실재화되는 실체도 셋째근원이며 중심과의 결국 생겨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이전(以前), 영-이전(以前) 그리고 개인성의 영역들을 다스리며; 영원한 아들은 영적 행동들의 구체들을 지배한다; 파라다이스 섬의 현존은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화 되는 힘의 권역을 통합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기세와 에너지들의 우주 조종자로서 작용하고, 그리하여 우주 실존(實在)과 그리고 절대 마음을 생기게 한다. 공동 행위자는 대우주에 두루 적극적이고 뚜렷한 개인성으로서 기능하는데, 특별히 영적 가치들, 물리적-에너지 관계들 그리고 참된 마음 의미들의 좀 더 높은 구체들에서 그러하다. 그는 에너지와 영이 연관하고 상호작용하는 곳마다 그리고 그러한 때마다 특별하게 기능한다; 그는 마음과의 모든 상호작용들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에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근원은 항상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성에 대한 표현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재(全在)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분별된-자격 없이 공유하는데, 때로는 전재(全在) 영으로 불린다. 특유하고도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하느님은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전지성을 공유한다; 영의 지식은 심오하고 완벽하다. 공동 창조자는 우주 아버지의 전능의 어떤 위상들을 현시하지만 마음의 권역 안에서만 실재적으로 전능하다. 신(神)의 셋째 개인은 마음 영역들에 대한 지적 중심이고 우주적 관리행정자이다; 이 면에 있어서 그는 절대이다—그의 주권은 분별 불가이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아들 동반자관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행동들은 아버지-파라다이스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그리고 특정 기능들에 있어서 그는 그가 체험적 신(神)들—최극자 하느님과 궁

fact of the absoluteness of Paradise. The Conjoint Creator embodies the fullness of the combined and infinite concepts of the First and Second Persons of Deity.

9:1.3 (98.8) While you envisage the Father as an original creator and the Son as a spiritual administrator, you should think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a universal co-ordinator, a minister of unlimited co-operation. The Conjoint Actor is the correlator of all actual reality; he is the Deity repository of the Father's thought and the Son's word and in action is eternally regardful of the material absoluteness of the central Isle. The Paradise Trinity has ordained the universal order of progress, and the providence of God is the domain of the Conjoint Creator and the evolving Supreme Being. No actual or actualizing reality can escape eventual relationship with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1.4 (98.9) The Universal Father presides over the realms of pre-energy, prespirit, and personality; the Eternal Son dominates the spheres of spiritual activities; the presence of the Isle of Paradise unifies the domain of physical energy and materializing power; the Conjoint Actor operates not only as an infinite spirit representing the Son but also as a universal manipulator of the forces and energies of Paradise,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the universal and absolute mind. The Conjoint Actor function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as a positive and distinct personality, especially in the higher spheres of spiritual values, physical-energy relationships, and true mind meanings. He functions specifically wherever and whenever energy and spirit associate and interact; he dominates all reactions with mind, wields great power in the spiritual world, and exerts a mighty influence over energy and matter. At all times the Third Source is expressive of the natu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9:1.5 (98.10) The Third Source and Center perfectly and without qualification shares the omnipre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sometimes being called the Omnipresent Spirit. In a peculiar and very personal manner the God of mind shares the omnisc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the knowledge of the Spirit is profound and complete. The Conjoint Creator manifests certain phases of the omnipotenc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is actually omnipotent only in the domain of mind. The Third Person of Deity is the intellectual center and the universal administrator of the mind realms; herein is he absolute — his sovereignty is unqualified.

9:1.6 (98.11) The Conjoint Actor seems to be motivated by the Father-Son partnership, but all his actions appear to recognize the Father-Paradise relationship. At times and in certain functions he seems to compensate for the

극자 하느님—의 발전의 미완성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무한한 신비가 있다: 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로서 자신의 무한을 동시에 계시했고, 그리고는 신성에서 하느님과 동등하고, 아들의 영적 본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원형들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존재, 주권에서는 잠정적으로 종속적이지만 행동에서는 여러 면에서 명백하게 가장 다재다능한 존재가 실존(實在)로서 솟는다. 그리고 행동에서의 그러한 명백한 우월성은, 심지어 물리적 중력—파라다이스 섬의 우주적 현시활동—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속성 안에서 나타난다.

물리적인 에너지와 사물들에 대한 이 초월적 통제 이외에도, 무한한 영은 자신의 영적 사명활동 속에 그토록 절묘하게 계시된 인내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속성들을 훌륭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영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로 공의(公義)를 덮기에 최극으로 적당하다. 영 하느님은, 기원이며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 전체를 소유한다. 너희가 기원된 우주는 공의(公義)라는 모루와 고난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망치를 사용하는 자들은 자비의 자녀들, 무한한 영의 영 후손들이다.

제 2 장. 전재(全在)하는 영

하느님은 삼중적 의미에서 영이다: 그 자신이 영이다;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분별된-자격 없이 영으로 나타나며; 공동 행위자 안에서 마음과 결연된 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영적 실체들 이외에, 우리는 체험적 영 현상들—최극존재와 궁극신(神)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영들—을 식별한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영은 아들이 우주 아버지에 대한 보완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을 보완한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영성화된 개인성구현이다;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과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구현된 영성화(靈性化)이다.

유란시아의 민족을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초물질적 힘의 영적 기제와 근원들의 속박되지 않은 많은 계통들이 있다. 생각 조절자들의 우주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연결,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의 광범위한 영향, 그리고 공동 창조자의 영적 현존이 존재한다. 아들의 영과 영의 영 사이에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은 그의 영적 사명활동에서, 마음과 영이 합하여 또는 영 단독으로 기능할 수 있다.

incompleten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experiential Deities — God the Supreme and God the Ultimate.

9:1.7 (100.1) And herein is an infinite mystery: That the Infinite simultaneously revealed his infinity in the Son and as Paradise, and then there springs into existence a being equal to God in divinity, reflective of the Son's spiritual nature, and capable of activating the Paradise pattern, a being provisionally subordinate in sovereignty but in many ways apparently the most versatile in action. And such apparent superiority in action is disclosed in an attribut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ich is superior even to physical gravity — the universal manifestation of the Isle of Paradise.

9:1.8 (100.2) In addition to this supercontrol of energy and things physical, the Infinite Spirit is superbly endowed with those attributes of patience, mercy, and love which are so exquisitely revealed in his spiritual ministry. The Spirit is supremely competent to minister love and to overshadow justice with mercy. God the Spirit possesses all the supernal kindness and merciful affection of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The universe of your origin is being forged out between the anvil of justice and the hammer of suffering; but those who wield the hammer are the children of mercy, the spirit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2. THE OMNIPRESENT SPIRIT

9:2.1 (100.3) God is spirit in a threefold sense: He himself is spirit; in his Son he appears as spirit without qualification; in the Conjoint Actor, as spirit allied with mind. And in addition to these spiritual realities, we think we discern levels of experiential spirit phenomena — the spirits of the Supreme Being, Ultimate Deity, and Deity Absolute.

9:2.2 (100.4) The Infinite Spirit is just as much a complement of the Eternal Son as the Son is a comple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is a spiritualized personalization of the Father; the Infinite Spirit is a personalized spiritualization of the Eternal Son and the Universal Father.

9:2.3 (100.5) There are many untrammelled lines of spiritual force and sources of supermaterial power linking the people of Urantia directly with the Deities of Paradise. There exist the connec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direct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 widespread influence of the spiritual-gravity urge of the Eternal Son, and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Conjoint Creator. There is a difference in funct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Son and the spirit of the Spirit. The Third Person in his spiritual ministry may function as mind plus spirit or as spirit alone.

이들 파라다이스 현존들 이외에, 유란시아인들은 신성의 이상(理想)과 최종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에서의 참된 자와 가슴에서의 정직한 자를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언제까지나 인도하는, 사랑 넘치는 개인성들의 거의 끝없는 그들의 배열들로 이루어진,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영적 영향들과 행동들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우주 영의 현존을 안다—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무한한 영, 신(神)의 셋째 개인의 현존은 심지어 필사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물질적 창조체들이, 인류의 종족들 위에 증여한 지역우주의 성령으로 기능하는, 이 신성한 영향의 혜택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들은 또한 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미(未)개인적 현존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영성화하는데 일하는 이들 신성한 영들 모두는, 일치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협동 속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필사자 상승과 완전성 달성 계획들에 대한 영적 작용 안에서 하나로써 존재한다.

제 3 장. 우주 조종자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적 중력의 근원이며 본체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물리적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중력이 가장 실체이며 영원하게 믿을만한 것 중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력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공동으로 후원되는 기체들과 에너지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데, 그것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에게 위탁되어 왔으며 기능적으로 그와 연관되어 있다.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도 놀라운 힘—반(反)중력—을 소유한다. 이 힘은 아버지나 아들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관찰되도록) 제시되어 계시지는 않는다. 셋째근원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 중력의 끌어당김에 저항하는 이 능력은 우주 관계들의 특정 위상들에 대한 공동 행위자의 개인적 반응들에서 계시된다. 그리고 독특한 이 속성은 무한한 영의 특정한 상급 개인성에게 전승해 줄 수 있다.

반(反)중력은 지역 구조 안에서 중력을 폐기시킬 수 있다; 그것은 동등한 기체 현존의 행사에 의해 그렇게 한다. 그것은 오직 물질적 중력과 관련하여 작용하며, 마음의 활동이 아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중력-저항 현상은 반(反)중력의 효과를 잘 예시하지만 반(反)중력의 원인을 예시하는 데는 아무 가치도 없다.

계속 나아가며 공동 행위자는 기체를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힘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한 힘들은 물질화 지점까지 이르는 에너지 늦춤으로써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9:2.4 (100.6) In addition to these Paradise presences, Urantians benefit by the spiritual influences and activities of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with their almost endless array of loving personalities who ever lead the true of purpose and the honest of heart upward and inward towards the ideals of divinity and the goal of supreme perfection.

9:2.5 (100.7)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spirit of the Eternal Son we know — we can unmistakably recognize it.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 Third Person of Deity, even mortal man may know, for material creatures can actually experience the beneficence of this divine influence which functions as the Holy Spirit of local universe bestowal upon the races of mankind. Human beings can also in some degree become conscious of the Adjuster, the im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se divine spirits which work for man's uplifting and spiritualization all act in unison and in perfect co-operation. They are as one in the spiritual operation of the plans of mortal ascension and perfection attainment.

3. THE UNIVERSAL MANIPULATOR

9:3.1 (101.1) The Isle of Paradise is the source and substance of physical gravity; and that should be sufficient to inform you that gravity is one of the most *real* and eternally dependable things in the whole physical universe of universes. Gravity cannot be modified or annulled except by the forces and energies conjointly sponsored by the Father and the Son, which have been intrusted to, and are functionally associated with, the pers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3.2 (101.2) The Infinite Spirit possesses a unique and amazing power — *antigravity*. This power is not functionally (observably) present in either the Father or the Son. This ability to withstand the pull of material gravity, inherent in the Third Source, is revealed in the personal reactions of the Conjoint Actor to certain phases of universe relationships. And this unique attribute is transmissible to certain of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3.3 (101.3) Antigravity can annul gravity within a local frame; it does so by the exercise of equal force presence. It operates only with reference to material gravity, and it is not the action of mind. The gravity-resistant phenomenon of a gyroscope is a fair illustration of the *effect* of antigravity but of no value to illustrate the *cause* of antigravity.

9:3.4 (101.4) Still further does the Conjoint Actor display powers which can transcend force and neutralize energy. Such powers operate by slowing down energy to the point of materialization and by other techniques unknown to you.

다른 기법들로써 작용한다.

공동 창조자는 에너지도 아니고 에너지의 근원도 아니고 에너지의 운명도 아니다; 그는 에너지의 조종자이다. 공동 창조자는 활동—동작, 변화, 변형, 조화-협동, 안정, 그리고 평형—이다. 파라다이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에 종속하는 에너지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활동에 대해 자연적으로 응답한다.

우주들의 우주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힘-통제 창조체들, 물리통제자들, 힘 지도자들,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들에 대한 규제와 안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의 하느님의 다른 대표자들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갖는 독특한 이 창조체들 전체는 반(反)중력과 같은 힘 통제의 다양한 속성들을 갖는데, 그들은 대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평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한다.

행동의 하느님의 이 모든 물질적 활동들은 자신의 기능을 파라다이스 섬에 관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힘의 대리자들은 모두 영원한 섬의 절대성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의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공동 행위자는 파라다이스를 위해서나, 또는 응답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그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활동한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비(非)개인적, 미(未)개인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모두 공동 행위자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들이다; 그것들은 어떤 존재나 또는 어떤 것의 반영, 파생 또는 반향도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원형틀이다; 행동의 하느님은 그 원형틀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물질적 지레받침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대리자들은 물리적 창조의 기능구조 안으로 물질적 차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성을 주입시키는 지능의 지렛대들이다.

제 4 장. 절대 마음

그의 물리적 그리고 영적 속성들로부터 구분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적 본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본성에 접촉하는 것은 어렵지만 연관—개인적은 아니지만 지적으로—할 수는 있다. 그것은, 셋째 개인의 물리적 속성들 그리고 영적 성격과 기능의 마음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이 본성은 개인성들의 식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물리적 또는 영적 현시활동으로서 기능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절대 마음은 셋째 개인의 마음이다; 그것은 영 하느님의 개인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마음은, 기능하고 있는 존재 안에서, 에너지, 혹은

9:3.5 (101.5) The Conjoint Creator is not energy nor the source of energy nor the destiny of energy; he is the *manipulator* of energy. The Conjoint Creator is action — motion, change, modification, coordination, stabilization, and equilibrium. The energies subject to the direct or indirect control of Paradise are by nature responsive to the act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his manifold agencies.

9:3.6 (101.6)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permeated by the power-control creatur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physical controllers, power directors, power center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God of Action who have to do with the regulation and stabilization of physical energies. These unique creatures of physical function all possess varying attributes of power control, such as antigravity, which they utilize in their efforts to establish the physical equilibrium of the matter and energies of the grand universe.

9:3.7 (101.7) All these material activities of the God of Action appear to relate his function to the Isle of Paradise, and indeed the agencies of power are all regardful of, even dependent on, the absoluteness of the eternal Isle. But the Conjoint Actor does not act for, or in response to, Paradise. He acts, personally, for the Father and the Son. Paradise is not a person. The nonpersonal, impersonal, and otherwise not personal doing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all volitional acts of the Conjoint Actor himself; they are not reflections, derivations, or repercussions of anything or anybody.

9:3.8 (101.8) Paradise is the pattern of infinity; the God of Action is the activator of that pattern. Paradise is the material fulcrum of infinity; the agenc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the levers of intelligence which motivate the material level and inject spontaneity into the mechanism of the physical creation.

4. THE ABSOLUTE MIND

9:4.1 (102.1) There is an intellectual natur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at is distinct from his physical and spiritual attributes. Such a nature is hardly contactable, but it is associable — intellectually though not personally.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physical attributes and the spiritual character of the Third Person on mind levels of function, but to the discernment of personalities this nature never functions independently of physical or spiritual manifestations.

9:4.2 (102.2) The absolute mind is the mind of the Third Person; it is inseparable from the personality of God the Spirit. Mind, in functioning beings, is not

영, 또는 그 모두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은 에너지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에너지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마음은 에너지 위에 얹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순수한 물질적 차원 안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마음이 순수한 영에 더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는 영이 태생적으로 의식적이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은 항상 지능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이런 마음 또는 저런 마음일 수 있고, 그것이 전(前)마음 또는 초(超)마음 심지어는 영적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동등하다. 영의 통찰력은 마음의 의식을, 초월하고, 초래하며 이론적으로 앞서서 일어난다.

공동 창조자는 마음의 권역, 우주적 지능존재의 영역들 안에서만 절대적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은 무한하며; 그것은 우주들의 우주의 활동적이고 기능하는 마음 순환회로들을 철저하게 초월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마음 자질은 일곱 주(主) 영들, 공동 창조자의 1차 개인성들로부터 기인된다. 이들 주(主) 영들은 조화우주 마음으로서 대우주에 마음을 분배하며, 너희 지역우주는 조화우주 마음의 오르본톤 유형의 네바돈 변형으로 가득 찼다.

무한 마음은 시간을 무시하며, 궁극적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며, 조화우주 마음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그러하다: 무한 마음은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지만, 무한으로부터 마음의 보조 차원들로 강하할 때, 지성은 공간의 사실과 한계들을 점점 더 고려해야만 한다.

조화우주 마음이 영에 응답하듯이, 조화우주 기세는 마음에 응답한다. 영은 신성한 목적이고 그리고 영 마음은 행동하는 신성한 목적이다. 에너지는 사물이고, 마음은 의미이며, 영은 가치이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마음은 에너지와 영 사이의, 영원 안에서 상호 친족관계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상대적 관계들을 확립한다.

마음은 영의 가치들을 지능의 의미들로 변형시키며; 의지작용은 물질적 그리고 영적 권역들 모두에서 마음의 의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 상승은 영, 마음 그리고 에너지에 있어서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성장을 포함한다. 개인성은 체험적 개별존재성의 이들 요소의 통합자이다.

제 5 장. 마음의 사명활동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마음에서 무한하다. 만일 우주가 무한을 향해 성장해야 한다면, 그의 마음 잠재는 여전히 한없는 수의 창조체들에게, 적절한 마음 그리고 그 밖의 지능의 필요조건들을 자질로서 부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separated from energy or spirit, or both. Mind is not inherent in energy; energy is receptive and responsive to mind; mind can be superimposed upon energy, but consciousness is not inherent in the purely material level. Mind does not have to be added to pure spirit, for spirit is innately conscious and identifying. Spirit is always intelligent, *minded* in some way. It may be this mind or that mind, it may be premind or supermind, even spirit mind, but it does the equivalent of thinking and knowing. The insight of spirit transcends, supervenes, and theoretically antedates the consciousness of mind.

9:4.3 (102.3) The Conjoint Creator is absolute only in the domain of mind, in the realms of universal intelligence. Th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it utterly transcends the active and functioning mind circu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mind endow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derived from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Conjoint Creator. These Master Spirits distribute mind to the grand universe as the cosmic mind, and your local universe is pervaded by the Nebadon variant of the Orvonton type of cosmic mind.

9:4.4 (102.4) Infinite mind ignores time, ultimate mind transcends time, cosmic mind is conditioned by time. And so with space: The Infinite Mind is independent of space, but as descent is made from the infinite to the adjutant levels of mind, intellect must increasingly reckon with the fact and limitations of space.

9:4.5 (102.5) Cosmic force responds to mind even as cosmic mind responds to spirit. Spirit is divine purpose, and spirit mind is divine purpose in action. Energy is thing, mind is meaning, spirit is value. Even in time and space, mind establishes those relative relationships between energy and spirit which are suggestive of mutual kinship in eternity.

9:4.6 (102.6) Mind transmutes the values of spirit into the meanings of intellect; volition has power to bring the meanings of mind to fruit in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domains. The Paradise ascent involves a relative and differential growth in spirit, mind, and energy. The personality is the unifier of these components of experiential individuality.

5. THE MINISTRY OF MIND

9:5.1 (102.7)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 in mind. If the universe should grow to infinity, still his mind potential would be adequate to endow limitless numbers of creatures with suitable minds and other prerequisites of intellect.

창조된 마음의 권역 안에서 셋째 개인은 그의 조화-협동 그리고 종속 연관-동료들과 함께 최극을 다스린다. 창조체 마음의 영역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배타적으로 기원된다; 그는 마음의 증여자이다. 심지어 아버지 단편들도 무한한 영의 마음 행동과 영적 기능에 의해 그 길이, 그들에 적절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마음의 독특한 특징은 그것이 그러한 광범위한 생명에게 증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창조적인 그리고 창조체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구체체에 있는 모든 마음들에 대해 사명활동 한다. 그는 지역우주들의 보조자들을 통해 인간 그리고 인간이하 지성에 사명활동하며, 물리통제자들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살아있는 물체들 중 가장 낮은 비(非)체험적 실존개체들에 대해서까지 사명활동한다. 그리고 마음-영 또는 마음-에너지 개인성들의 사명활동이 항상 마음의 방향이다.

신(神)의 셋째 개인이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의지창조체들이 영원한 아들 또는 우주 아버지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하는 것보다 무한한 영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형성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다. 공동 창조자의 실체는 바로 그 인간 마음의 실존 안에서는 불완전하게 드러난다. 공동 창조자는 조화우주 마음의 조상이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개별존재화된 순환회로로서, 그것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창조 딸에 의해 지역우주 안에 증여되어지는 그 조화우주 마음의 미(未)개인적 부분이다.

셋째 개인이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현상을 신성하다고 짐작해서 가정하면 안 된다. 인간 지성은 동물 종족의 물질적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리적 본성이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참된 계시가 아닌 것처럼, 우주 지능은 마음이신 하느님의 참된 계시가 아니다. 완전함이 자연 안에 있지만 자연은 완전하지 않다. 공동 창조자는 마음의 근원이지만 마음은 공동 창조자가 아니다.

유란시아에서, 마음은 생각 완전성의 본질과 너희의 미성숙한 인간 본성의 진화하는 정신활동 사이에 있는 하나의 타협이다. 너희의 지적 진화에 대한 계획은 정말로 숭고한 완전성의 하나이지만, 육신의 장막 안에서 너희가 기능하는 한 너희는 그러한 신성한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마음은 정말로 신성한 기원이 있고, 신성한 운명을 갖지만, 너희 필사자 마음들은 아직 신성한 존엄성이 없다.

너무나도 종종, 아주 너무나도 종종, 너희는 너희 마음을 불성실로 훼손시키고 불의로 마음을 그슬리게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동물적 두려움에 굴복시키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원은 신성하지만, 상승하는 너희

9:5.2 (102.8) In the domain of *created mind* the Third Person, with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associates, rules supreme. The realms of creature mind are of exclusiv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he is the bestower of mind. Even the Father fragments find it impossible to indwell the minds of men until the way has been properly prepared for them by the mind action and spiritual function of the Infinite Spirit.

9:5.3 (103.1) The unique feature of mind is that it can be bestowed upon such a wide range of life. Through his creative and creature associates the Third Source and Center ministers to all minds on all spheres. He ministers to human and subhuman intellect through the adjutant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rough the agency of the physical controllers, ministers even to the lowest nonexperiencing entities of the most primitive types of living things. And always is the direction of mind a ministry of mind-spirit or mind-energy personalities.

9:5.4 (103.2) Since the Third Person of Deity is the source of mind,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evolutionary will creatures find it easier to form comprehensible concepts of the Infinite Spirit than they do of either the Eternal Son or the Universal Father. The reality of the Conjoint Creator is disclosed imperfectly in the very existence of human mind. The Conjoint Creator is the ancestor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d of man is an individualized circuit, an impersonal portion, of that cosmic mind as it is bestowed in a local universe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5.5 (103.3) Because the Third Person is the source of mind, do not presume to reckon that all phenomena of mind are divine. Human intellect is rooted in the material origin of the animal races. Universe intelligence is no more a true revelation of God who is mind than is physical nature a true revelation of the beauty and harmony of Paradise. Perfection is in nature, but nature is not perfect. The Conjoint Creator is the source of mind, but mind is not the Conjoint Creator.

9:5.6 (103.4) Mind, on Urantia, is a compromise between the essence of thought perfection and the evolving mentality of your immature human nature. The plan for your intellectual evolution is, indeed, one of sublime perfection, but you are far short of that divine goal as you function in the tabernacles of the flesh. Mind is truly of divine origin, and it does have a divine destiny, but your mortal minds are not yet of divine dignity.

9:5.7 (103.5) Too often, all too often, you mar your minds by insincerity and sear them with unrighteousness; you subject them to animal fear and distort them by useless anxiety. Therefore, though the source of mind is divine, mind as you know it on your world of ascension can hardly

세계에서는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은 위대한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찬양이나 경배는 더 더욱 될 수 없다. 미성숙하고 비활동적인 인간 지성에 대한 깊은 사색은 오직 겸손의 반응으로 이루어야만 한다.

제 6 장. 마음-중력 순환회로

우주적 지능존재인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창조 안에서 각 마음, 각 지능존재를 개인적으로 의식하며, 그리고 그는 멀리 퍼지는 우주들 안에 있는 이 모든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마음 자질의 영적 창조체들과 개인적이고도 완전한 접촉을 유지한다. 마음의 이 모든 활동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초점화구현 되어있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개인적 의식의 한 부분인, 절대 마음-중력 순환회로 안에 장악된다.

아버지가 모든 개인성을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아들이 모든 영적 실체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공동 행위자도 모든 마음에게 어떤 잡아당기는 힘을 더욱 행사한다; 그는 우주적 마음 순환회로를 분별불가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한다. 모든 참되고 진정한 지적 가치들, 모든 신성한 생각들과 완전한 관념들은 반드시 이 절대적인 마음의 순환회로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마음 중력은 물질적 그리고 영적 중력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두 개가 부딪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 중력이 항상 기능한다. 셋 전체가 연관할 때, 개인성 중력이 물질적 창조체—물리적 또는 모론시아적, 유한 또는 아(亞)절대—를 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반없이, 마음의 자질은 미(未)개인적 존재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특성을 갖추게 하며 그리고 개인성이 전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식을 자질로 부여한다.

개인성 존엄의 자아신분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하거나 불멸이거나 혹은 잠재적 불멸이거나, 어찌 되었건, 영, 마음 또는 물질에서 기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다. 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과 그리고 물질적 중력의 상호작용이 개인성 중력의 출현에 전제조건도 아니다. 아버지의 순환회로는 영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물질적 존재를 포용하거나, 혹은 물질적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영 존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인성 중력의 작용은 항상 우주 아버지의 의지적 활동이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순전히 물질적 존재들 안에서는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고, 순전히 영적인 개인성들 안에서는 영과 연관되어 있지만, 인간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인성 계층들은 에너지와 영 둘 모두와 연관되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한다. 창조체 마음의 영적 측면들은 반드시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당김에 대해 응답한다; 물질적 특성을 지닌 것들은 물질적 우주의 중력 충동에 응답한다.

become the object of great admiration, much less of adoration or worship. The contemplation of the immature and inactive human intellect should lead only to reactions of humility.

6. THE MIND-GRAVITY CIRCUIT

9:6.1 (103.6)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intelligence, is personally conscious of every *mind*, every intellect, in all creation, and he maintains a personal and perfect contact with all these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creatures of mind endowment in the far-flung universes. All these activities of mind are grasped in the absolute mind-gravity circuit which focalizes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is a part of the personal consciousness of the Infinite Spirit.

9:6.2 (103.7) Much as the Father draws all personality to himself, and as the Son attracts all spiritual reality, so does the Conjoint Actor exercise a drawing power on all minds; he unqualifiedly dominates and controls the universal mind circuit. All true and genuine intellectual values, all divine thoughts and perfect ideas, are unerringly drawn into this absolute circuit of mind.

9:6.3 (104.1) Mind gravity can operate independently of material and spiritual gravity, but wherever and whenever the latter two impinge, mind gravity always functions. When all three are associated, personality gravity may embrace the material creature — physical or morontial, finite or absonite. But irrespective of this, the endowment of mind even in impersonal beings qualifies them to think and endows them with consciousness despite the total absence of personality.

9:6.4 (104.2) Selfhood of personality dignity, human or divine, immortal or potentially immortal, does not however originate in either spirit, mind, or matter; it is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Neither is the interaction of spirit, mind, and material gravity a prerequisite to the appearance of personality gravity. The Father's circuit may embrace a mind-material being who is unresponsive to spirit gravity, or it may include a mind-spirit being who is unresponsive to material gravity. The operation of personality gravity is always a volitional act of the Universal Father.

9:6.5 (104.3) While mind is energy associated in purely material beings and spirit associated in purely spiritual personalities, innumerable orders of personality, including the human, possess minds that are associated with both energy and spirit. The spiritual aspects of creature mind unfailingly respond to the spirit-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the material features respond to the gravity urge of the material universe.

조화우주 마음은, 에너지나 영 그 어느 것과도 연관하지 않을 때, 물질적 또는 영적 순환회로 그 어떤 것의 중력 요구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순수 마음은 오직 공동 행위자의 우주적 중력 장악에만 종속된다. 순수 마음은 무한 마음과 가까운 일가이고, 무한 마음(영과 에너지의 절대자의 이론적 조화-협동)은 외견상으로 분명히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법이다.

영-에너지 분기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관찰 가능한 기능도 더욱 커지며; 에너지와 영의 다양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마음의 관찰 가능한 기능도 적어진다. 분명하게, 조화우주 마음의 최대 기능은 공간의 시간 우주들 안에 있다. 이곳에서 마음은 에너지와 영의 중간-지대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음의 더 높은 차원들에서는 이것은 참말이 아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에너지와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마음-중력 순환회로는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신(神)의 셋째 개인으로부터 발산되지만, 관찰 가능한 마음의 기능이 모든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려진 창조에 두루, 그 기능이 예측될 수 없는 거의 납득할 수 없는 현존이 마음의 이 순환회로와 나란히 있다.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주 절대자의 기능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믿는다. 이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오직 창조체들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유한 마음의 예측 불가능성의 어떤 위상들은 최극존재의 미완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가 맞닿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곳인, 광대한 활동의 지대가 존재한다. 마음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 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창조체들에 대한 창조자의 마음의 완전 표현이다; 최극존재는 자신들의 창조자에 대한, 모든 창조체들의 마음의 진화하는 표현이다.

제 7 장. 우주 반영

공동 행위자는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동시적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 실재성의 모든 차원들을 조화-협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주 반영성의 현상, 그들이 초우주에 두루 배출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원하는 지점에서도 모든 이 정보와 지식을, 반영성에 의해, 초점화구현 되어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아는, 독특하고도 불가해한 힘이다. 반영성의 행동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 각각에서 완전성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초우주들 모든 구역들에 두루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경계선 안에서 작용한다. 반영성은 최종적으로 파라다이스에 초점화구현 된다.

9:6.6 (104.4) Cosmic mind, when not associated with either energy or spirit, is subject to the gravity demands of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circuits. Pure mind is subject only to the universal gravity grasp of the Conjoint Actor. Pure mind is close of kin to infinite mind, and infinite mind (the theoretical co-ordinate of the absolutes of spirit and energy) is apparently a law in itself.

9:6.7 (104.5) The greater the spirit-energy divergence, the greater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the lesser the diversity of energy and spirit, the lesser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Apparently, the maximum function of the cosmic mind is in the time universes of space. Here mind seems to function in a mid-zone between energy and spirit, but this is not true of the higher levels of mind; on Paradise, energy and spirit are essentially one.

9:6.8 (104.6) The mind-gravity circuit is dependable; it emanates from the Third Person of Deity on Paradise, but not all the observable function of mind is predictable. Throughout all known creation there parallels this circuit of mind some little-understood presence whose function is not predictable. We believe that this unpredictability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function of the Universal Absolute. What this function is, we do not know; what actuates it, we can only conjecture; concerning its relation to creatures, we can only speculate.

9:6.9 (104.7) Certain phases of the unpredictability of finite mind may be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Being, and there is a vast zone of activities wherein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iversal Absolute may possibly be tangent. There is much about mind that is unknown, but of this we are sure: The Infinite Spirit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mind of the Creator to all creatures; the Supreme Being is the evolving expression of the minds of all creatures to their Creator.

7. UNIVERSE REFLECTIVITY

9:7.1 (105.1) The Conjoint Actor is able to co-ordinate all levels of universe actuality in such manner as to make possible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he mental,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is is the phenomenon of *universe reflectivity*, that unique and inexplicable power to see, hear, sense, and know all things as they transpire throughout a superuniverse, and to focalize, by reflectivity, all this information and knowledge at any desired point. The action of reflectivity is shown in perfection on each of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is also operative throughout all sectors of the superuniverses an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ocal universes.

반영성의 현상은, 초우주 본부 세계에서 그곳에 위치한 반영적 개인성들의 놀라운 행위들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창조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실존 위상의 가장 복잡한 상호-연관을 나타낸다. 영(靈) 계통들은 아들에게로, 물리적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어로, 마음은 셋째근원에게로 되돌아 추적할 수 있지만; 우주 반영성의 비범한 현상 안에는 셋 모두의 독특하고도 이례적인 통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주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발생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먼 곳의 조건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반영성의 기법 대부분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많은 위상들이 있다.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마음 순환회로의 우주 중심이라는 것과, 그가 조화우주 마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조화우주 마음이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 마음 중력의 지배 아래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화우주 마음의 순환회로들이 알려진 모든 실존의 지적 차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우주 공간 보고서들을 담고 있으며, 확실하게 일곱주(主) 영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집중한다.

유한한 조화우주 마음과 신성한 절대 마음 사이의 관계는 최극자의 체험적 마음 안에서 진화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시간의 여명기에 이 체험적 마음이 무한한 영에 의해 최극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배웠으며, 우리는 최극 마음의 활동을 가정함으로써만, 반영성 현상의 특성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만일 그 최극자가 반영성에 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조화우주의식의 뒤엎힌 활동행위들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반영성은 체험적 유한의 한계들 안에서 전지(全知)인 것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최극존재의 현존-의식의 창발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그 위상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반영성의 활용이, 최극자의 의식과의 부분적인 접촉과 동등할 것이다.

제 8 장.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무한한 영은 자신의 힘들과 특권들 중 많은 부분을 그와 조화-협동하고 종속되는 개인성들 그리고 대리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충만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무한한 영의 첫 번째 신(神)-창조하는 행위는 우주들에게 무한한 영을 분배하는 분배자들, 곧

Reflectivity finally focalizes on Paradise.

9:7.2 (105.2) The phenomenon of reflectivity, as it is disclose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worlds in the amazing performances of the reflective personalities there stationed, represents the most complex interassociation of all phases of existence to be found in all creation. Lines of spirit can be traced back to the Son, physical energy to Paradise, and mind to the Third Source; but in the extraordinary phenomenon of universe reflectivity there is a unique and exceptional unification of all three, so associated as to enable the universe rulers to know about remote conditions instantaneously, simultaneously with their occurrence.

9:7.3 (105.3) Much of the technique of reflectivity we comprehend, but there are many phases which truly baffle us. We know that the Conjoint Actor is the universe center of the mind circuit, that he is the ancestor of the cosmic mind, and that cosmic mind operates under the dominance of the absolute mind grav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e know further that the circuits of the cosmic mind influence the intellectual levels of all known existence; they contain the universal space reports, and just as certainly they focu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onverge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9:7.4 (105.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ite cosmic mind and the divine absolute mind appears to be evolving in the experiential mind of the Supreme. We are taught that, in the dawn of time, this experiential mind was bestowed upon the Supreme by the Infinite Spirit, and we conjecture that certain features of the phenomenon of reflectivity can be accounted for only by postulating the activity of the Supreme Mind. If the Supreme is not concerned in reflectivity, we are at a loss to explain the intricate transactions and unerring operations of this consciousness of the cosmos.

9:7.5 (105.5) Reflectivity appears to be omnisci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experiential finite and may represent the emergence of the presence-consciousness of the Supreme Being. If this assumption is true, then the utilization of reflectivity in any of its phases is equivalent to partial contact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Supreme.

8.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8.1 (105.6) The Infinite Spirit possesses full power to transmit many of his powers and prerogatives to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personalities and agencies.

9:8.2 (105.7) The first Deity-creating act of the Infinite Spirit, functioning apart from the Trinity but in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실존으로써 개인성구현되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는 별개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어떤 계시되지 않은 관계적-연합으로 기능하고 있는 행위이다.

초우주의 본부에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직접적인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일곱 창조계들 각각은 파라다이스의 주(主) 영들 중 하나에게 의존하는데, 그는 그 초우주의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을 통해 활동한다.

무한한 영의 그 다음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적 활동이 때로는 창조 영들의 생산 속에서 드러난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 아들에게 부모가 될 때마다, 무한한 영은 모든 뒤 따르는 우주 체험에서, 그 창조자 아들의 가까운 연관-동료인 지역우주 창조 영에 대한 조상이 된다.

영원한 아들과 창조자 아들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과 창조 영들, 창조자 아들의 지역우주 조화-협동자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창조에 대한 무한한 영의 그것은, 지역우주에 대한 창조 영의 그것과 같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일정한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본성의 순환회로 감독자들과 함께, 사명활동하는 영들, 메신저들, 선생들, 재판관들, 조력자들, 그리고 충고자들의 광대한 대열들로서 대우주 안에 대표된다. 이 존재들 모두가 그 단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성들은 아니다. 유한-창조체 다양성의 개인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화되어 진다:

1. 주관적 자아-의식.

2.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대한 객관적 응답.

창조자 개인성들과 창조체 개인성들이 존재하며, 기본적인 이 두 유형들 외에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들이 있는데, 무한한 영에게 개인적이지만 창조체 존재들에게는 분별불가하게 개인적이지 않다. 이 셋째근원 개인성들은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의 일부분이 아니다. 첫째근원 개인성과 셋째근원 개인성은 상호 접촉할 수 있다; 모든 개인성은 접촉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개인성을 증여한다. 우리는 단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셋째근원이 왜 비(非)-아버지 개인성을 증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한한 영이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의 창조적 연대 속에서 그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한다. 또한 무한한 영은 첫째 근원 개인성의 증여에서 아버지를 위해 활동할

some unrevealed association with the Father and the Son, personalized in the exist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e distributors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universes.

9:8.3 (106.1) There is no direct representativ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the headquarters of a superuniverse. Each of these seven creations is dependent on one of the Master Spirits of Paradise, who acts throug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situated at the capital of the superuniverse.

9:8.4 (106.2) The next and continuing creative act of the Infinite Spirit is disclosed, from time to time, in the production of the Creative Spirits. Every tim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become parent to a Creator Son, the Infinite Spirit becomes ancestor to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who becomes the close associate of that Creator Son in all subsequent universe experience.

9:8.5 (106.3) Just a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Eternal Son and the Creator Sons,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Creative Spirits, the local universe co-ordinates of the Creator Sons. What the Infinite Spirit is to the total creation, a Creative Spirit is to a local universe.

9:8.6 (106.4)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represented in the grand universe by a vast array of ministering spirits, messengers, teachers, adjudicators, helpers, and advisers, together with supervisors of certain circuits of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nature. Not all of these beings are personalities in the strict meaning of the term. Personality of the finite-creature variety is characterized by:

9:8.7 (106.5) 1. Subjective self-consciousness.

9:8.8 (106.6) 2. Objective response to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9:8.9 (106.7) There are creator personalities and creature personalities, and in addition to these two fundamental types there are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eings who are personal to the Infinite Spirit, but who are not unqualifiedly personal to creature beings. These Third Source personalities are not a part of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First Source personality and Third Source personality are mutually contactable; all personality is contactable.

9:8.10 (106.8) The Father bestows personality by his personal free will. Why he does so we can only conjecture; how he does so we do not know. Neither do we know why the Third Source bestows non-Father personality, but this the Infinite Spirit does in his own behalf, in creative conjunction with the Eternal Son and in numerous ways unknown to you. The Infinite Spirit can also act for the Father in the bestowal of First Source

수 있다.

셋째근원 개인성들에는 수많은 유형들이 있다. 무한한 영은 일정한 힘 지도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집단들에게, 셋째근원 개인성을 증여한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은, 순환회로를 이루는 아버지의 창조체들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그들의 관계 안에서 그들 자신에 의한 등급 안에서, 창조 영들과 같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을 개인성들로 간주한다.

첫째근원과 셋째근원 개인성들 모두는, 개인성의 개념과 연관되는 사람의 모든 것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그들은 기억, 이성, 판단, 창조적 상상력, 관념 관계적-연합, 결정, 선택, 그리고 필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추가적 지성의 힘을 포용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다. 소수의 예외들이 있지만 너희에게 계시된 계층들은 형태와 분명한 개별존재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 존재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영 실존의 모든 계층들의 눈에 보인다.

너희도 현재의 물질적 눈의 제한된 시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자마자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 해당하는 너희 영적 연관-동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영적 사물들의 실체에 대한 그 확대된 감수성과 함께 모른시아 형태를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적 가족은, 이 글들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세 개의 거대한 집단으로 나뉜다:

I. 최극 영. 다른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계층들을 포용하는 합성 기원의 집단:

1.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
2. 초우주들의 반영 영.
3. 지역우주의 창조 영.

II. 힘 지도자. 모든 조직된 공간 전체에 두루 기능하는 통제와 창조체들과 대리자들의 집단.

III. 무한한 영의 개인성. 그들 중 일부가 의지 창조체들로서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칭이 이들 존재들이 셋째근원 개인성들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보통 세 개의 대분류로 나뉜다:

1.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2. 공간의 메신저 무리.
3. 시간의 사명활동 영.

이 집단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중앙 또는 거주

personality.

9:8.11 (106.9) There are numerous types of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e Infinite Spirit bestows Third Source personality upon numerous groups who are not included in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such as certain of the power directors. Likewise does the Infinite Spirit treat as personalities numerous groups of beings, such as the Creative Spirits, who are in a class by themselves in their relations to encircled creatures of the Father.

9:8.12 (106.10) Both First Source and Third Source personalities are endowed with all and more than man associates with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ey have minds embracing memory, reason, judgment, creative imagination, idea association, decision, choice, and numerous additional powers of intellect wholly unknown to mortals. With few exceptions the orders revealed to you possess form and distinct individuality; they are real beings. A majority of them are visible to all orders of spirit existence.

9:8.13 (107.1) Even you will be able to see your spiritual associates of the lower orders as soon as you are delivered from the limited vision of your present material eyes and have been endowed with a morontia form with its enlarged sensitivity to the reality of spiritual things.

9:8.14 (107.2)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 it is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falls into three great groups:

9:8.15 (107.3) I. *The Supreme Spirits*. A group of composite origin that embraces, among others, the following orders:

9:8.16 (107.4) 1.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9:8.17 (107.5) 2.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9:8.18 (107.6) 3.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9:8.19 (107.7) II. *The Power Directors*. A group of control creatures and agencies that function throughout all organized space.

9:8.20 (107.8) III.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is design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se beings are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ough some of them are unique as will creatures. They are usually grouped in three major classifications:

9:8.21 (107.9) 1.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9:8.22 (107.10) 2.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9:8.23 (107.11) 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9:8.24 (107.12) These groups serve on Paradise, in

우주에서, 초우주들에서 봉사하며, 그들은 지역우주 안에서, 심지어 별자리들과 체계들 그리고 행성들에 이르기까지 기능하는 계층들을 포용한다.

신성하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가족에 속하는 영 개인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모든 지능 창조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명활동으로 봉사하는 일에 언제까지나 바쳐어져 있다. 이들 영 존재들은 필사 사람이 혼돈으로부터 영광을 향하여 오르는, 살아있는 사다리를 이루고 있다.

[무한한 영의 본성과 일을 서술하기 위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에 의해 임명된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유란시아에 계시되었음]

the central or residential universe, in the superuniverses, and they embrace orders that function in the local universes, even to the constellations, systems, and planets.

9:8.25 (107.13)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vast family of the Divine and Infinite Spirit are forever dedicated to the service of the ministry of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the Son to all the intelligent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se spirit beings constitute the living ladder whereby mortal man climbs from chaos to glory.

9:8.26 (107.14) [Revealed on Urantia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commissioned by the Ancients of Days to portray the nature and work of the Infinite Spirit.]

제 10 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 009

유랜시아 책

011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0 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섹션

소개

- 제 1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자아-분배
제 2 장. 신(神) 개인성구현
제 3 장. 신(神)의 세 개인
제 4 장. 신(神)의 삼위일체 연합
제 5 장. 삼위일체의 기능
제 6 장. 삼위일체 고정아들
제 7 장. 최극위의 전반적-통제
제 8 장.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소개

영원한 신(神)들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개인성 절대론으로부터의 아버지의 벗어남을 촉진시킨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무한 개인적 의지의 무제한적 표현을 신(神)의 절대성과 완전하게 연관시킨다. 영원한 아들과 신성한 기원의 다양한 아들들은, 공동 행위자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과 함께, 시원성, 완전, 무변, 영원, 보편성, 절대성, 그리고 무한성 안에 선천적인, 달리 말하면 한계들로부터의 아버지의 해방을 실질적으로 제공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신(神)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충분한 표현과 완전한 계시를 효력적으로 제공한다. 삼위일체 고정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계시를 제공한다. 삼위일체는 신(神) 합일이며, 이 합일은, 기원적이고 조화-협동적이며 공존하는 세 개인성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이 신성한 하나를 이루는 절대적 기초 위에 영원히 놓여 있다.

영원의 순환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PAPER 10

THE PARADISE TRINITY

SECTIONS

Introduction

1. Self-Distribu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2. Deity Personalization
3. The Three Persons of Deity
4. The Trinity Union of Deity
5. Functions of the Trinity
6.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7.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8. The Trinity Beyond the Finite

INTRODUCTION

10:0.1 (108.1) THE Paradise Trinity of eternal Deities facilitates the Father's escape from personality absolutism. The Trinity perfectly associates the limitless expression of God's infinite personal will with the absoluteness of Deity. The Eternal Son and the various Sons of divine origin, together with the Conjoint Actor and his universe children, effectively provide for the Father's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otherwise inherent in primacy, perfection, changelessness, eternity, universality, absoluteness, and infinity.

10:0.2 (108.2) The Paradise Trinity effectively provides for the full expression and perfect revelation of the eternal nature of Deity.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likewise afford a full and perfect revelation of divine justice. The Trinity is Deity unity, and this unity rests eternally upon the absolute foundations of the divine oneness of the three original and co-ordinate and coexistent personalitie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10:0.3 (108.3) From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circle

끝없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주 관련사들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외의 어떤 것도 우주들의 우주 전체 안에서 필연적이어야만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되돌아보거나 앞을 내다 볼 때, 현재의 주(主)우주는 삼위일체 없이 생각될 수 없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만물을 행하는 교차적 또는 복합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없이는, 신(神)의 절대적 하나 됨 앞에서 무한자가 어떻게 삼중(三重)의 그리고 조화-협동의 개인성구현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창조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도, 신(神)의 삼중적 개인성구현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의지적 해방의 충만함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신(神) 합일 안에 선천적인 절대성의 완벽함에 대한 삼위일체 표준들에 들어맞지 않는다.

제 1 장.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자아-분배

영원 안에서 되돌아가면, 아버지가 심오한 자아-분배의 원칙을 개시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주 아버지의 자아없는,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안에는, 그가 중여하거나 위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발견한 오직 그 힘들과 그 권한에 대해서만 자신을 그 실행으로 남겨두는 그 어떤 것들이 선천적으로 있다.

우주 아버지는 모든 다른 창조자 또는 창조체에 중여될 수 있었던 자신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자신으로부터 벗어버렸다. 그는 위임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한을 자신의 신성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연관된 지능체들에게 위임해 왔다. 그는 건네줄 수 있는 행정-관리적 권한의 모든 특권을, 그의 주권자 아들들에게, 그들의 각 우주들 안으로, 실제적으로 건네주었다.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그는 영원한 아들이 기원적인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우주 안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창조자 아들 각각을 완전하고 유능하며 권위 있게 만들어 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속성 전체를, 모든 방법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중앙 내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그가 자신을 벗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개인성 소유의 존엄성과 거룩함과 함께 내어주었고, 실제적으로 중여하여 왔다.

신성한 개인성은 자아-중심적이 아니다; 자아-분배와 개인성의 공유는 신성한 자유의지 자아 신분을 특징짓는다. 창조체들은 다른 개인적 창조체들과 관계적-연합을 갈망한다; 창조자들은 그들의 우주 자녀들과 신성을 공유하려고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무한자의 개인성은, 두 조화-협동 개인성,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와 함께 존재의 실

of eternity, looking backward into the endless past, we can discover only one inescapable inevitability in universe affairs, and that is the Paradise Trinity. I deem the Trinity to have been inevitable. As I vie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ime, I consider nothing els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have been inevitable. The present master universe, viewed in retrospect or in prospect, is unthinkable without the Trinity. Given the Paradise Trinity, we can postulate alternate or even multiple ways of doing all things, but without the Trinity of Father, Son, and Spirit we are unable to conceive how the Infinite could achieve threefold and co-ordinate personalization in the face of the absolute oneness of Deity. No other concept of creation measures up to the Trinity standards of the completeness of the absoluteness inherent in Deity unity coupled with the repleteness of volitional liberation inherent in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1. SELF-DISTRIBU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1.1 (108:4) It would seem that the Father, back in eternity, inaugurated a policy of profound self-distribution. There is inherent in the selfless, loving, and lovabl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something which causes him to reserve to himself the exercise of only those powers and that authority which he apparently finds it impossible to delegate or to bestow.

10:1.2 (108:5) The Universal Father all along has divested himself of every part of himself that was bestowable on any other Creator or creature. He has delegated to his divine Sons and their associated intelligences every power and all authority that could be delegated. He has actually transferred to his Sovereign Sons,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every prerogativ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was transferable. In th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he has made each Sovereign Creator Son just as perfect, competent, and authoritative as is the Eternal Son in the original and central universe. He has given away, actually bestowed, with the dignity and sanctity of personality possession, all of himself and all of his attributes, everything he possibly could divest himself of, in every way, in every age, in every place, and to every person, and in every universe except that of his central indwelling.

10:1.3 (109:1) Divine personality is not self-centered; self-distribution and sharing of personality characterize divine freewill selfhood. Creatures crave association with other personal creatures; Creators are moved to share divinity with their universe children;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is disclosed as the Universal Father, who shares

체성과 자아의 동등성을 공유하는, 우주 아버지로서 드러난다.

아버지의 개인성과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것인데, 왜냐하면 창조의 공동 행위가 실행되었을 때, 신(神)의 셋째 개인이 개인성 실존으로 떠오르고 자신의 신성한 부모들에 대한 병합된 개념들을 실행하였을 때, 아버지는 분별불가 개인성으로서, 존재하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공동 행위자가 존재로 나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창조의 중앙 핵심의 물질화는, 어떤 영원한 변화들이 발생되었다. 하느님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절대적 개인성으로서 자신을 주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무한성의 개인성”을 자신의 오직하나-남은 아들에게 증여한 반면, 그 둘 모두는 무한한 영에게 그들의 영원한 연합의 “공동 개인성”을 증여하였다.

유한 마음의 개념을 벗어나는 이들 그리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아들 안에서 우주적으로 계시되고,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적으로 활동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 창조체가 하느님의 무한한 아버지-개인성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진화하는 세계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여들이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한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 중 일부를 실제로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행성 구체들의 창조체들은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한 확실하고도 믿을만한 정보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장. 신(神) 개인성구현

삼위일체화구현 기법에 의해, 아버지는 그 분별불가 영 개인성을 벗어버리어 그것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며 그리하여 뒤이어 일어나는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창조되는, 결국 생겨나게 되는, 또는 그 밖에 개인성구현되는 유형들의 신성한 아버지가 되는 무제한적 수용능력의 자신을 그렇게 소유한다. 절대적이고 분별불가의 개인성으로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서 또는 아들과 함께 기능할 수 있지만, 개인적 아버지로서 그는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서로 다른 차원의 다양한 무리에게 개인성을 계속 증여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자녀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적-연합의 개인적 관계를 언제까지나 유지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충만함을 자기 아들의 개인성에게 증여한 후에, 자아-증여의 이 행위가 완성되고 완전할 때, 그리고 아버지-아들 연합 안에 그렇게 실존하는 무한 힘과 본성의, 영원한 동반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다른 존재를 여전히 이루는

reality of being and equality of self with two co-ordinate personalities, the Eternal Son and the Conjoint Actor.

10:1.4 (109.2) For knowledge concerning the Father's personality and divine attributes we will always be dependent on the revelations of the Eternal Son, for when the conjoint act of creation was effected, when the Third Person of Deity sprang into personality existence and executed the combined concepts of his divine parents, the Father ceased to exist as the unqualified personality. With the coming into being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central core of creation, certain eternal changes took place. God gave himself as an absolute personality to his Eternal Son. Thus does the Father bestow the "personality of infinity" upon his only-begotten Son, while they both bestow the "conjoint personality" of their eternal union upon the Infinite Spirit.

10:1.5 (109.3) For these and other reasons beyond the concept of the finite mind,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human creature to comprehend God's infinite father-personality except as it is universally revealed in the Eternal Son and, with the Son, is universally active in the Infinite Spirit.

10:1.6 (109.4) Since the Paradise Sons of God visit the evolutionary worlds and sometimes even there dwel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since these bestowals make it possible for mortal man actually to know something of the nature and character of divine personality, therefore must the creatures of the planetary spheres look to the bestowals of these Paradise Sons for reliable and trustworthy information regard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2. DEITY PERSONALIZATION

10:2.1 (109.5)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the Father divests himself of that unqualified spirit personality which is the Son, but in so doing he constitutes himself the Father of this very Son and thereby possesses himself of unlimited capacity to become the divine Father of all subsequently created, eventuated, or other personalized type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s the *absolute and unqualified personality* the Father can function only as and with the Son, but as a *personal Father* he continues to bestow personality upon the diverse hosts of the differing level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nd he forever maintains personal relations of loving association with this vast family of universe children.

10:2.2 (109.6) After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the personality of his Son the fullness of himself, and when this act of self-bestowal is complete and perfect, of the infinite power and nature which are thus existent in the Father-Son union, the eternal

그 본질특성들과 속성들을 공동으로 증여한다; 그리고 이 공동 개인성, 무한한 영은 신(神)의 실존적 개인성구현을 완성한다.

아들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필요불가결하다. 영은 둘째와 셋째 개인의 형제우애관계에 필요불가결하다. 세 개인이 사회집단의 최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 행위자의 필연성을 믿게 하는 많은 전체 이유들 중 가장 작은 것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개인성, 무제한적 근원 개인성이다. 영원한 아들은 분별불가 개인성-절대, 하느님의 개인적 본성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시간과 영원에 두루 계시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한한 영은 공동 개인성, 영속하는 아버지-아들 연합의 독특한 개인적 결과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영원한 아들의 절대 개인성을 뺀 무한성의 개인성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해방된 아버지-개인성과 절대 아들-개인성의 연합의 초(超)부가적 결과이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독특한 개인성들이다; 아무도 중복되지 않는다; 각자가 기원적이다; 모두 연합되어 있다.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개인성 관계성의 총합, 아버지와의 아들관계와 영에 대한 아버지 되심 둘 모두와 그리고 아버지-조상과 영-연관으로의 둘 모두의 신성한 평등성에 대한 의식(意識)을 홀로 체험한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가지는 체험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조상되는 선조도 없음을 안다. 영원한 아들은 아들관계의 체험, 개인성 선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동시에 아들은 무한한 영에 대해 공동 부모가 됨을 의식한다. 무한한 영은 이중적 개인성 선조를 인식한다, 그러나 조화-협동하는 신(神) 개인성에 대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神) 개인성구현의 실존적 주기는 영과 함께 완벽성을 달성하며;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1차 개인성들은 체험적이고 숫자로서 일곱이다.

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기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삼위일체를 합일된 신(神)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들의 분명한 개인적 능력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함을 안다. 나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화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조화-협동시키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일곱 개의 다른 단수적 그리고 복수적 능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일곱 관계적-연합이 그러한 어떤 신성 조합을

partners conjointly bestow those qualitie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still another being like themselves; and this conjoint personality, the Infinite Spirit, completes the existential personalization of Deity.

10:2.3 (110.1) The Son is indispensable to the fatherhood of God. The Spirit is indispensable to the fraternity of the Second and Third Persons. Three persons are a minimum social group, but this is least of all the many reasons for believing in the inevitability of the Conjoint Actor.

10:2.4 (110.2)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infinite *father-personality*, the unlimited source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unqualified *personality-absolute*, that divine being who stands throughout all time and eternity as the perfect revelation of the personal nature of God. The Infinite Spirit is the *conjoint personality*, the unique personal consequence of the everlasting Father-Son union.

10:2.5 (110.3)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ersonality of infinity minus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he personal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the superadditive consequence of the union of the liberated Father-personality and the absolute Son-personality.

10:2.6 (110.4)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unique persons; none is a duplicate; each is original; all are united.

10:2.7 (110.5) The Eternal Son alone experiences the fullness of divine personality relationship, consciousness of both sonship with the Father and paternity to the Spirit and of divine equality with both Father-ancestor and Spirit-associate. The Father knows the experience of having a Son who is his equal, but the Father knows no ancestral antecedents. The Eternal Son has the experience of sonship, recognition of personality ance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Son is conscious of being joint parent to the Infinite Spirit. The Infinite Spirit is conscious of twofold personality ancestry but is not parental to a co-ordinate Deity personality. With the Spirit the existential cycle of Deity personalization attains completion;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experiential and are seven in number.

10:2.8 (110.6) I am of origin in the Paradise Trinity. I know the Trinity as unified Deity; I also know that the Father, Son, and Spirit exist and act in their definite personal capacities. I positively know that they not only act personally and collectively, but that they also co-ordinate their performances in various groupings, so that in the end they function in seven different singular and plural capacities. And since these seven associations exhaust the possibilities for such divinity combination, it is

위한 가능성을 다 소모함으로써, 우주의 실체들이 가치, 의미 그리고 개인성의 일곱 변화들로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제 3 장. 신(神)의 세 개인

오직 하나의 신(神)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세 가지 긍정적이고 신성한 개인성구현들이 존재한다. 신성한 조절자들을 받는 사람의 자질에 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사람을 만들자.” 복수(複數)의 신(神)의 활동들과 행위들에 대해 유란시아의 기록들에 두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 근원이며 중심들의 실존과 작업을 인식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아들과 영이 삼위일체 관계적-연합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동일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배웠다. 영원 안에서 그리고 신(神)들로서 그들은 틀림없이 행하지만, 시간 안에서 그리고 개인성들로서는 그들이 매우 다양한 본성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우주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성들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공간의 권역들로부터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신성한 아들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영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활동”이다. 하느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말씀하고 무한한 영을 통하여 활동하는 반면, 모든 우주 활동에 있어서 아들과 영은 절묘하게 형제우애를 가지며, 영광을 받고 신성하게 존중을 받는 공동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는 동등한 두 형제로서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본성에서 분명하게 동등하고 존재에서 조화-협동을 이루지만, 그들의 우주 행위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들이 있으며, 홀로 활동할 때에는, 신(神)의 각 개인이 절대성 안에서 분명하게 제한된다.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영을 구성하는 개인성, 힘, 그리고 속성들에 대한 자신의 자아-의지적 벗어버림 이전에, 분별불가적, 절대적, 무한한 신(神)이었던 것으로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보인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러한 이론적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어떤 말의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주 아버지라고 간주될 수 없다; 아버지신분은 아들관계 없이는 실체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적인 감각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아버지는 영원하게 먼 어떤 순간에 홀로 존재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외롭게 실존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아들과 영 둘 모두 아버지와 함께 공동영원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기원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영원한 선조였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적 아버지신분과 절대

inevitable that the realities of the universe shall appear in seven variations of values, meanings, and personality.

3. THE THREE PERSONS OF DEITY

10:3.1 (110.7) Notwithstanding there is only one Deity, there are three positive and divine personalizations of Deity. Regarding the endowment of man with the divine Adjusters, the Father said: “Let us make mortal man in our own image.” Repeatedly throughout the Urantian writings there occurs this reference to the acts and doings of plural Deity, clearly showing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and working of the three Sources and Centers.

10:3.2 (110.8) We are taught that the Son and the Spirit sustain the same and equal relations to the Father in the Trinity association. In eternity and as Deities they undoubtedly do, but in time and as personalities they certainly disclose relationships of a very diverse nature. Looking from Paradise out on the universes, these relationships do seem to be very similar, but when viewed from the domains of space, they appear to be quite different.

10:3.3 (111.1) The divine Sons are indeed the “Word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Spirit are truly the “Act of God.” God speaks through the Son and, with the Son, acts through the Infinite Spirit, while in all universe activities the Son and the Spirit are exquisitely fraternal, working as two equal brothers with admiration and love for an honored and divinely respected common Father.

10:3.4 (111.2)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certainly equal in nature, co-ordinate in being, but there are unmistakable differences in their universe performances, and when acting alone, each person of Deity is apparently limited in absoluteness.

10:3.5 (111.3) The Universal Father, prior to his self-willed divestment of the personality, power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the Son and the Spirit, seems to have been (philosophically considered) an unqualified, absolute, and infinite Deity. But such a theoretical First Source and Center without a Son could not in any sense of the word be considered the *Universal Father*; fatherhood is not real without sonship. Furthermore, the Father, to have been absolute in a total sense, must have existed at some eternally distant moment alone. But he never had such a solitary existence; the Son and the Spirit are both coeternal with the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s always been, and will forever be,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and, with the Son, the eternal progenitor of the Infinite Spirit.

10:3.6 (111.4) We observe that the Father has

적 의지를 제외한 절대성의 모든 직접적 현시활동들을 벗어버린 것을 관찰한다. 우리는 의지가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가 의지를 벗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지의 무한성은 첫째 근원이며 중심 안에 영원하게 선천적인 것이 분명하다.

개인성의 절대성을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 절대론의 족쇄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로 하여금 개인성-절대자로서 홀로 활동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공존하는 신(神)—공동 행위자—의 최종적 개인성구현으로, 절대에서의 신(神) 기능의 전체성과 관련된, 세 신성한 개인성들의 불가결한 삼위일체로서의 상호의존이 잇따라 일어난다.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개인성들의 아버지-절대자이다. 아버지는 행동에서의 해방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이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전체 신(神)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절대가 아니다.

첫째 근원이며 중심은 하보나 밖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적 우주들 안에서 기능 한다:

1. 창조자로서, 창조자 아들들, 그의 손자들을 통하여.
2. 통제자로서, 파라다이스의 중력 중심을 통하여.
3. 영으로서,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4. 마음으로서, 공동 창조자를 통하여.
5.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모든 창조체들과 아버지의 접촉을 유지한다.
6. 한 개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배타적 단편으로—생각 조절자들에 의해 필사 사람 안에—창조에 두루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7. 전체 신(神)으로서, 그는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기능한다.

우주 아버지에 의한 관할권의 이 모든 양도와 위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자아-부과된 것이다. 모든-힘을 지니신 아버지는 우주 권한의 이들 한계들을 의도적으로 떠맡는다.

영원한 아들은, 하느님 단편들의 증여에서 그리고 다른 전(前)개인적 활동들을 제외하고, 모든 영적 관점에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지적 활동이나 물질적 우주들의 에너지 활동, 그 어느 것으로도 밀접하게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절대일

divested himself of all direct manifestations of absoluteness except absolute fatherhood and absolute volition. We do not know whether volition is an inalienable attribute of the Father; we can only observe that he did *not* divest himself of volition. Such infinity of will must have been eternally inherent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3.7 (111.5) In bestowing absoluteness of personality upon the Eternal Son, the Universal Father escapes from the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but in so doing he takes a step which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him to act alone as the personality-absolute. And with the final personalization of coexistent Deity — the Conjoint Actor — there ensues the critical trinitarian interdependence of the three divine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the totality of Deity function in absolute.

10:3.8 (111.6) God is the Father-Absolute of all personalitie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Father is personally absolute in liberty of action, but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made, in the making, and yet to be made, the Father is not discernibly absolute as total Deity except in the Paradise Trinity.

10:3.9 (111.7)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unctions outside of Havona in the phenomenal universes as follows:

10:3.10 (111.8) 1. As creator, through the Creator Sons, his grandsons.

10:3.11 (111.9) 2. As controller, through the gravity center of Paradise.

10:3.12 (111.10) 3. As spirit, through the Eternal Son.

10:3.13 (111.11) 4. As mind, through the Conjoint Creator.

10:3.14 (111.12) 5. As a Father, he maintains parental contact with all creatures through his personality circuit.

10:3.15 (111.13) 6. As a person, he acts *directly* throughout creation by his exclusive fragments — in mortal man by the Thought Adjusters.

10:3.16 (111.14) 7. As total Deity, he functions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10:3.17 (112.1) All these relinquishments and delegations of jurisdiction by the Universal Father are wholly voluntary and self-imposed. The all-powerful Father purposefully assumes these limitations of universe authority.

10:3.18 (112.2) The Eternal Son seems to function as one with the Father in all spiritual respects except in the bestowals of the God fragments and in other prepersonal activities. Neither is the So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material creatures nor with the energy activities of the material universes. As absolute the Son functions

때 아들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오직 영적 우주의 권역 안에서만 기능한다.

무한한 영은 그의 모든 작용에 있어서 놀라운 정도로 우주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그는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의 구체들 안에서 수행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아들 관계적-연합을 대표하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기능한다. 그는 물리적 중력, 영적 중력, 또는 개인성 순환회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지만, 모든 다른 우주 활동들 전체에 대체로 참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 실존적이고 절대적 중력 통제에 종속적이지만 반면에, 무한한 영은 세 개의 초(超)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적 자질은, 절대성의 초(超)궁극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1차 기세와 에너지들의 현시활동조차도 초월하고 겉보기에 중성화 시키는 여러 방법에 종사되어 있다. 특정의 상황들에서 이 초(超)통제들은 조화 우주 실체의 1차 현시활동까지도 절대적으로 초월한다.

제 4 장. 신(神)의 삼위일체 연합

모든 절대적 관계적-연합들 중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첫 번째 삼원일체)는 개인적 신(神)의 배타적 관계적-연합으로서 독특하다. 하느님은 하느님에 관해서만 그리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느님으로서 기능하지만,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만 그리고 우주 전체성과의 관련 안에서만 절대 신(神)으로 기능한다.

영원 신(神)은 완전하게 합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완전하게 개별존재화된 세 개인들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첫째 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영원한 조화-협동자들에 대한 그리고 나뉘지 않은 신(神)의 우주 기능들의 모든 신성한 합일에 대한 성격 특색들과 무한 힘들의 모든 다양성의 동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삼위일체는 비(非)개인적 수용능력 안에서 무한 개인들 기능의 관계적-연합이지만 그러나 개인성의 위반은 아니다. 미숙한 예증이겠지만, 비(非)개인적이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인적 의지에 종속하는, 집합적 실존개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형성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실체이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신(神) 연합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들 또는 영, 또는 그들 중 어떤 둘도 이 바로 똑같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련하여 기능할 수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은 비(非)-삼위일체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신(神)들로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협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무한한 영이 행하는 것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 안

as a person and only in the domain of the spiritual universe.

10:3.19 (112.3) The Infinite Spirit is amazingly universal and unbelievably versatile in all his operations. He performs in the spheres of mind, matter, and spirit. The Conjoint Actor represents the Father-Son association, but he also functions as himself. He is not directly concerned with physical gravity, with spiritual gravity, or with the personality circuit, but he more or less participates in all other universe activities. While apparently dependent on three existential and absolute gravity controls, the Infinite Spirit appears to exercise three supercontrols. This threefold endowment is employed in many ways to transcend and seemingly to neutralize even the manifestations of primary forces and energies, right up to the superultimate borders of absoluteness. In certain situations these supercontrols absolutely transcend even the primal manifestations of cosmic reality.

4. THE TRINITY UNION OF DEITY

10:4.1 (112.4) Of all absolute associations, the Paradise Trinity (the first triunity) is unique as an exclusive association of personal Deity. God functions as God only in relation to God and to those who can know God, but as absolute Deity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and in relation to universe totality.

10:4.2 (112.5) Eternal Deity is perfectly unified;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perfectly individualized persons of Deity. The Paradise Trinity makes possible the simultaneous expression of all the diversity of the character traits and infinite power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his eternal co-ordinates and of all the divine unity of the universe functions of undivided Deity.

10:4.3 (112.6) The Trinity is an association of infinite persons functioning in a nonpersonal capacity but not in contravention of personality. The illustration is crude, but a father, son, and grandson could form a corporate entity which would be nonpersonal but nonetheless subject to their personal wills.

10:4.4 (112.7) The Paradise Trinity is *real*. It exists as the Deity union of Father, Son, and Spirit; yet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or any two of them, can function in relation to this selfsame Paradise Trin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can collaborate in a non-Trinity manner, but not as three Deities. As persons they can collaborate as they choose, but that is not the Trinity.

10:4.5 (112.8) Ever remember that what the Infinite Spirit does is the function of the Conjoint Actor.

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서의 셋이자 하나 안에서의 셋인, 그리고 둘로서의 하나이면서 둘을 위해 활동하는 하나인, 삼위일체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삼위일체는 너무나 전체 우주 관련사들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모든 고립된 조화우주 사건 또는 개인성 관계성의 전체성을 설명하려는 우리 시도들에서 반드시 계산에 넣어 고려해야만 한다. 삼위일체는 우주의 모든 차원들에서 기능하고, 필사 사람은 유한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로써의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개념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한 필사자로서 너희의 개별적 깨우침에 따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혼의 반응과의 조화 속에서 삼위일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삼위일체의 절대성을 매우 조금 알 수 있지만,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할 때 너희는, 비록 절대위는 아니지만, 삼위일체 최극위와 궁극위에서의, 계속적인 계시들과 예상치 못한 발견들 앞에 여러 차례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삼위일체의 기능

개인적 신(神)들은 속성들을 갖지만, 삼위일체가 속성들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성한 존재들의 이 관계적-연합은 공의(公義) 관리-행정, 전체성 태도, 조화-협동 행동, 그리고 조화우주 전반적-통제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 기능들은 개인성 가치의 모든 살아있는 실체들에 관한 한, 활동적으로 최극, 궁극 그리고 (신(神)의 한계들 안에서) 절대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단순히 신성이라는 아버지의 외견적 자질 전체에, 아들과 영의 개인적 실존 안에 독특하게 있는 특화된 속성들을 더한 것이 아니다.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은, 우주적 계시, 행동 그리고 관리-행정을 위한 새로운 의미, 가치, 힘, 그리고 역량들의 진화, 결국 생겨남, 그리고 신(神) 구현화를 가져온다. 살아있는 관계적-연합들, 인간 가족들, 사회 집단들, 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단순한 산술적 합계에 의해 증강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 잠재는 구성요소가 되는 개별존재들의 속성들에 대한 단순한 합계를 항상 훨씬 뛰어넘는다.

삼위일체는 그 삼위일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체 우주를 향함에 따라서 독특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삼위일체의 우주 태도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잘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태도들은 동시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고립된 상황이나 사건과 관계하여 다중적일 수 있다:

1. 유한자를 향한 태도. 삼위일체의 최대 자

Both the Father and the Son are functioning in and through and as him. But it would be futile to attempt to elucidate the Trinity mystery: three as one and in one, and one as two and acting for two.

10:4.6 (112.9) The Trinity is so related to total universe affairs that it must be reckoned with in our attempts to explain the totality of any isolated cosmic event or personality relationship. The Trinity functions on all levels of the cosmos, and mortal man is limited to the finite level; therefore must man be content with a finite concept of the Trinity as the Trinity.

10:4.7 (113.1) As a mortal in the flesh you should view the Trinity in accordance with your individual enlightenment and in harmony with the reactions of your mind and soul. You can know very little of the absoluteness of the Trinity, but as you ascend Paradiseward, you will many times experience astonishment at successive revelations and unexpected discoveries of Trinity supremacy and ultimacy, if not of absoluteness.

5. FUNCTIONS OF THE TRINITY

10:5.1 (113.2) The personal Deities have attributes, but it is hardly consistent to speak of the Trinity as having attributes. This association of divine beings may more properly be regarded as having *functions*, such as justice administration, totality attitudes, co-ordinate action, and cosmic overcontrol. These functions are actively supreme, ultimate, and (within the limits of Deity) absolute as far as all living realities of personality value are concerned.

10:5.2 (113.3) The fun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simply the sum of the Father's apparent endowment of divinity plus those specialized attributes that are unique in the personal existence of the Son and the Spirit. The Trinity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results in the evolution, eventuation, and deitization of new meanings, values, powers, and capacities for universal revelation, action, and administration. Living associations, human families, social groups, or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augmented by mere arithmetical summation. The group potential is always far in excess of the simp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component individuals.

10:5.3 (113.4) The Trinity maintains a unique attitude as the Trinity towards the entire univers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can be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universe attitudes of the Trinity. Such attitudes are simultaneous and may be multiple concerning any isolated situation or event:

10:5.4 (113.5) 1.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아-제한은 유한세계를 향한 태도이다. 삼위일체는 개인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배타적 개인성구현인 최극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최극자는 유한 창조체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힘-개인성 초점화구현에 가장 접근되어 있다. 따라서 유한세계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는 때로 최극위의 삼위일체로 이야기된다.

2. 아(亞)절대를 향한 태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유한보다는 높지만 절대보다는 낮은 차원들과 관련을 가지며, 이 관계는 때로 궁극위의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진다. 궁극자뿐만 아니라 최극자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지만, 분별화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들 각각의 차원들에 대하여, 그 각각은 체험적-힘 발달의 전(前)개인적 시대들 동안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절대적 태도는 절대 실존(實在)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 신(神)의 행동 안에서 극에 달한다.

삼위일체 무한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모든 삼위일체(三元一體) 관계들에 대한 조화-협동 행동—비(非)신(神)화 된 것뿐만 아니라 신(神)화 된 것—을 포함하며 그러므로 개인성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무한으로서 깊이 사색함에 있어서, 일곱 삼위일체(三元一體)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납득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어떤 모순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충만한 진리와 영원한 의의(意義) 그리고 무한 완전의 세존재들의 결코-끝남이 없는 상호-연관의 본성을, 내가 제한된 인간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제 6 장. 삼위일체 고정아들

모든 법칙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원된다; 그는 법칙이다. 영적 법칙에 대한 관리-행정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에게 부여되어 있다. 법칙의 계시, 신성한 법령들에 대한 공표와 해석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이다. 법칙의 적용, 공의(公義)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지역 안에서 일어나며 특정 삼위일체 아들들에 의해 수행된다.

공의(公義)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우주적 주권 안에 선천적이지만, 선함, 자비 그리고 진리는, 그 신(神) 연합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성한 개인성들의 우주 사명활동이다. 공의(公義)는 아버지나 아들 또는 영의 태도가 아니다. 공의(公義)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사명활동에 대한 이들

maximum self-limitation of the Trinity is its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Trinity is not a person, nor is the Supreme Being an exclusive personalization of the Trinity, but the Supreme is the nearest approach to a power-personality focalization of the Trinity which can be comprehended by finite creatures. Hence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is sometimes spoken of as the Trinity of Supremacy.

10:5.5 (113.6) 2. *Attitude toward the Absonite.* The Paradise Trinity has regard for those levels of existence which are more than finite but less than absolute, and this relationship is sometimes denominated the Trinity of Ultimacy. Neither the Ultimate nor the Supreme are who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n a qualified sense and to their respective levels, each seems to represent the Trinity during the prepersonal eras of experiential-power development.

10:5.6 (113.7) 3. *The Absolut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is in relation to absolute existences and culminates in the action of total Deity.

10:5.7 (113.8) The Trinity Infinite involves the co-ordinate action of all triunity relationship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undeified as well as deified — and hence is very difficult for personalities to grasp. In the contemplation of the Trinity as infinite, do not ignore the seven triunities; thereby certain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may be avoided, and certain paradoxes may be partially resolved.

10:5.8 (114.1) But I do not command language which would enable me to convey to the limited human mind the full truth and the eternal significa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nature of the never-ending interassociation of the three beings of infinite perfection.

6.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10:6.1 (114.2) All law takes origin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e is law*. The administration of spiritual law inheres i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revelation of law, the promulg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statutes, is the func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application of law, justice, falls within the provi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s carried out by certain Sons of the Trinity.

10:6.2 (114.3) *Justice* is inherent in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the Paradise Trinity, but goodness, mercy, and truth are the universe ministry of the divine personalities, whose Deity union constitutes the Trinity. Justice is not the attitude of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Justice is the Trinity attitude

인성들의 삼위일체 태도이다.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아무도 공의(公義)의 관리-행정을 돌보지 않는다. 공의(公義)는 결코 개인적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항상 복수(複數) 기능이다.

증거, 공평성(자비로 조화된 공의)의 기초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들, 모든 창조의 지능 존재들의 모든 영역들과 그리고 마음들에 대한 아버지와의 공동 대표자에 의해 제공된다.

심판,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따른 공의(公義)의 최종 적용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본성을 함께하는 존재들의 업무이다.

삼위일체 아들들의 이 집단은 다음의 개인성들을 포함한다: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8. 지혜의 완전자.
9. 신성한 조언자.
- 10 우주 검열자.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기능하는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녀들이며, 내가 이 집단의 10번째 계층에 속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주 검열자이다. 이들 계층들은 우주적 감각에서는 삼위일체의 태도의 대표자는 아니다; 그들은 집행적 심판—공의—의 권역들 안에서만 신(神)의 이 집단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이 배정받은 엄밀한 업무를 위하여 삼위일체에 의해 특별히 예정되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위하여 개인성구현된 그 기능들 안에서만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그들의 삼위일체-기원 연관들은 일곱 초우주들에게 최극 공평성의 정당한 심판을 나누어준다. 중앙우주 안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거기에서 공평함은 완전 안에서 자아-명백하며 그리고 하보나 완전은 부조화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공의(公義)는 정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다; 자비는 그것의 개인적 표현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다; 정확은 법 실행의 특징이다; 신성한 심판은 공정성의 마음이며,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에 항상 순응하고,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을 향

of these personalities of love, mercy, and ministry. No one of the Paradise Deities foster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stice is never a personal attitude; it is always a plural function.

10:6.3 (114.4) *Evidence*, the basis of fairness (justice in harmony with mercy), is suppli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conjoint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and the Son to all realms and to the minds of the intelligent beings of all creation.

10:6.4 (114.5) *Judgment*, the final application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s the work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beings partaking of the Trinity nature of the united Father, Son, and Spirit.

10:6.5 (114.6) This group of Trinity Sons embraces the following personalities:

- 10:6.6 (114.7)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 10:6.7 (114.8) 2. Eternals of Days.
- 10:6.8 (114.9) 3. Ancients of Days.
- 10:6.9 (114.10) 4. Perfections of Days.
- 10:6.10 (114.11) 5. Recents of Days.
- 10:6.11 (114.12) 6. Unions of Days.
- 10:6.12 (114.13) 7. Faithfuls of Days.
- 10:6.13 (114.14) 8. Perfectioners of Wisdom.
- 10:6.14 (114.15) 9. Divine Counselors.
- 10:6.15 (114.16) 10. Universal Censors.

10:6.16 (114.17) We are the childre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functioning as the Trinity, for I chance to belong to the tenth order of this group, the Universal Censors. These order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attitude of the Trinity in a universal sense; they represent this collective attitude of Deity only in the domains of executive judgment — justice. They were specifically designed by the Trinity for the precise work to which they are assigned, and they represent the Trinity only in those functions for which they were personalized.

10:6.17 (115.1)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Trinity-origin associates mete out the just judgment of supreme fairness to the seven superuniverses. In the central universe such functions exist in theory only; there fairness is self-evident in perfection, and Havona perfection precludes all possibility of disharmony.

10:6.18 (115.2) Justice is the collective thought of righteousness; mercy is its personal expression. Mercy is the attitude of love; precision characterizes the operation of law; divine judgment is the soul of fairness, ever conforming to the

상 성취한다. 온전하게 인식되고 완벽하게 납득되었을 때, 삼위일체의 의로운 공의(公義)와 우주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납득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안에서, 사람이 그것을 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체험적 우주에서의 사랑과 법칙의 사명활동을 조화-협동하기 위하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개인성들이 조절되고 있다.

제 7 장. 최극위의 전반적-통제

신(神)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개인은 서로 동등하고, 그들은 하나이다. “우리 주님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다.” 영원한 신(神)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는 목적의 완전성과 집행의 하나 됨이 존재한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공동 행위자는 정말로 그리고 신성하게 하나이다. 진리 가운데에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없다.”

유한 차원에서 필사자들에게 사물들이 나타날 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최극존재와 마찬가지로, 오직 전체—전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초우주, 전체 대우주—와 관련된다. 이 전체성 태도는 삼위일체가 신(神)의 전체이고 그리고 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존재한다.

최극존재는 유한 우주들 안에서 기능하는 삼위일체보다는 낮은 그리고 어딘가 다른 어떤 존재이지만; 일정한 한계들 안에서 그리고 미완성 힘-개인성구현의 현재 시대 동안, 이 진화 신(神)은 최극위의 삼위일체의 태도를 반영하려고 나타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최극존재와는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현재 우주 시대 동안 그들은 삼위일체로서 그와 함께 협동한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자에 대하여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납득한다. 우리는 그가 최종적으로 진화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궁극자 하느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종종 추측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최극위의 전반적-통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예측 불가능성은, 틀림없이 궁극자의 미완성의 표식이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반응의 미완성에 속하는, 어떤 발전의 미완성에 의하여 특징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 마음은 수많은 것들—비극적인 물리적 사건들, 무시무시한 우연한 현상들, 무서운 재난들, 고통스러운 질병들,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들—을 극작 생각하고는 그러한 재앙이 최극존재의 이 있음직한 기능의 알려지지 않은 책략과 상관관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실제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justice of the Trinity, ever fulfilling the divine love of God. When fully perceived and completely understood, the righteous justice of the Trinity and the merciful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are coincident. But man has no such full understanding of divine justice. Thus in the Trinity, as man would view it, the personalities of Father, Son, and Spirit are adjusted to co-ordinate ministry of love and law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of time.

7.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10:7.1 (115.3)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sons of Deity are equal to each other, and they are one. “The Lord our God is one God.” There is perfection of purpose and oneness of execution in the divine Trinity of eternal Deities. The Father, the Son, and the Conjoint Actor are truly and divinely one. Of a truth it is written: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nd beside me there is no God.”

10:7.2 (115.4) As things appear to the mortal on the finite level, the Paradise Trinity, like the Supreme Being, is concerned only with the total — total planet, total universe, total superuniverse, total grand universe. This totality attitude exists because the Trinity is the total of Deity and for many other reasons.

10:7.3 (115.5) The Supreme Being is something less and something other than the Trinity functioning in the finite universes; but within certain limits and during the present era of incomplete power-personalization, this evolutionary Deity does appear to reflect the attitude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he Father, Son, and Spirit do not personally function with the Supreme Being, but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y collaborate with him as the Trinity. We understand that they sustain a similar relationship to the Ultimate. We often conjecture as to what will be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dise Deities and God the Supreme when he has finally evolved, but we do not really know.

10:7.4 (115.6) We do not find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to be wholly predictable. Furthermore, this unpredictability appears to be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velopmental incompleteness, undoubtedly an earmark of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and of the incompleteness of finite reaction to the Paradise Trinity.

10:7.5 (115.7) The mortal mind can immediately think of a thousand and one things — catastrophic physical events, appalling accidents, horrific disasters, painful illnesses, and world-wide scourges — and ask whether such visitations are correlated in the unknown maneuvering of this probable functioning of the Supreme Being. Frankly, we do not know; we are not really sure.

이 모든 어렵고도 다소 신비스러운 상황들이 항상 우주들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일어남을 관찰한다. 실존의 환경들과 삶의 설명할 수 없는 변천들은 모두 최극자의 기능과 삼위일체의 전반적-통제에 의해, 높은 가치의 의미심장한 원형들 속으로 서로 엮어지는 것 같다.

하느님의 한 아들로써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 사랑의 개인적 태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우주 활동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 있는 개별 필사자의 선(善)을 초래하는지를 항상 납득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의 진보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활동들은 전적으로 의미심장하고 신중하게 계시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제 8 장.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관계하는 많은 진리들과 사실들은 유한을 초월하는 기능을 인식함으로써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다.

궁극위 삼위일체의 기능들을 논의하는 일은 권장할만하지 못하겠지만, 궁극자 하느님이 초월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삼위일체 현시활동이라는 사실은 밝혀도 된다. 우리는 주(主)우주 의 통일이 궁극자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활동이며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일정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아(亞)절대 전반적-통제의 위상에 대한 반영이라고 믿으려한다. 궁극자는, 단지 최극자가 유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변한다는 감각에서는, 아(亞)절대와의 관계에서 분별화된 삼위일체 현시활동이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어떤 감각에 있어서는, 전체 신(神)의 구성요소 개인성들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들의 연합과 삼위일체의 절대적 기능은 전체 신(神)의 기능과 동등하다. 그리고 그러한 신(神)의 완성에는 유한과 아(亞)절대 둘 모두를 초월한다.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한 개인도 실제로 전체 신(神) 잠재를 채우지 못하는 반면, 셋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 세 무한 개인들은 전체 신(神)-신(神) 절대자-의 전(前)개인적 그리고 실존적 잠재를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숫자의 존재들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을 개인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신(神) 절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나는 신(神) 절대자를 존중하고 명예를 드린다.

나는 영원 안에서 최종자가 결국에는 신(神)

But we do observe that, as time passes, all these difficult and more or less mysterious situations *always* work out for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universes. It may be that the circumstances of existence and the inexplicable vicissitudes of living are all interwoven into a meaningful pattern of high value by the function of the Supreme and the overcontrol of the Trinity.

10:7.6 (116.1) As a son of God you can discern the personal attitude of love in all the acts of God the Father. But you will not always be able to understand how many of the universe acts of the Paradise Trinity redound to the good of the individual mortal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In the progress of eternity the acts of the Trinity will be revealed as altogether meaningful and considerate, but they do not always so appear to the creatures of time.

8. THE TRINITY BEYOND THE FINITE

10:8.1 (116.2) Many truths and facts pertaining to the Paradise Trinity can only be even partially comprehended by recognizing a function that transcends the finite.

10:8.2 (116.3) It would be inadvisable to discuss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of Ultimacy, but it may be disclosed that God the Ultimate is the Trinity manifestation comprehended by the Transcendentals. We are inclined to the belief that the unifica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e eventuating act of the Ultimate and is probably reflective of certain, but not all, phases of the absonite overcontrol of the Paradise Trinity. The Ultimate is a qualified manifestation of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absonite only in the sense that the Supreme thus partially represents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10:8.3 (116.4)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in a certain sense, the constituent personalities of total Deity. Their union in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absolute function of the Trinity equvalate to the function of total Deity. And such completion of Deity transcends both the finite and the absonite.

10:8.4 (116.5) While no single person of the Paradise Deities actually fills all Deity potential, collectively all three do. Three infinite persons seem to be the minimum number of beings required to activate the prepersonal and existential potential of total Deity — the Deity Absolute.

10:8.5 (116.6) We know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s*, but I do not personally know the Deity Absolute. I love and worship God the Father; I respect and honor the Deity Absolute.

10:8.6 (116.7) I once sojourned in a universe where a

절대자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어떤 존재들의 집단이 가르쳤던 한 우주에 머문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최종자의 미래를 싸 숨기는 이런 신비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최종의 무리단은, 다른 자들 중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 안에서 완전을 달성한 시간과 공간의 그 필사자들을 포용한다. 창조체들로서 그리고 창조체 수용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충분히 그리고 참되게 안다. 하느님을 모든 창조체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발견하면, 이 최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초(超)유한 아버지를 향한 탐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탐구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궁극적 속성들과 성격의 아(亞)절대 본성과악을 포함한다. 영원이 그러한 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드러내겠지만, 그러나 만일 최종자가 이 신성의 궁극을 파악하더라도 그들이 아마 절대 신(神)의 초(超)궁극 차원들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최종자가 신(神) 절대자를 부분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영원들의 영원 안에는 우주 절대자에 대한 문제가 상승하는 그리고 진보하는 최종자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흥미를 돋우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당황하게 하고 도전을 걸 것인데, 이는 우주 절대자의 조화우주 관계들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 물질적 우주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관리-행정이 계속 확대됨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무한만이 아버지-무한자를 드러낼 수 있다.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되었음]

certain group of beings taught that the finaliters, in eternity, were eventually to become the children of the Deity Absolute. But I am unwilling to accept this solution of the mystery which enshrouds the future of the finaliters.

10:8.7 (116.8) The Corps of the Finality embrace, among others, those mortals of time and space who have attained perfection in all that pertains to the will of God. As creatures and within the limits of creature capacity they fully and truly know God. Having thus found God as the Father of all creatures, these finaliters must sometime begin the quest for the superfinite Father. But this quest involves a grasp of the absonite nature of the ultimate attributes and character of the Paradise Father. Eternity will disclose whether such an attainment is possible, but we are convinced, even if the finaliters do grasp this ultimate of divinity, they will probably be unable to attain the superultimate levels of absolute Deity.

10:8.8 (116.9) It may be possible that the finaliters will partially attain the Deity Absolute, but even if they should, still in the eternity of eternities the problem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continue to intrigue, mystify, baffle, and challenge the ascending and progressing finaliters, for we perceive that the unfathomability of the cosmic relationships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tend to grow in proportions as the material universes and their spiritual administration continue to expand.

10:8.9 (117.1) Only infinity can disclose the Father-Infinite.

10:8.10 (117.2)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acting by authority from the Ancients of Days resident on Uversa.]

제 11 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섬

⇨ 010

유랜시아 책

012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1 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섬

섹션

소개

- 제 1 장. 신성한 거처
- 제 2 장. 영원한 섬의 본성
- 제 3 장. 상부 파라다이스
- 제 4 장.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 제 5 장. 하부 파라다이스
- 제 6 장. 공간 호흡 작용
- 제 7 장. 파라다이스의 공간 기능
- 제 8 장. 파라다이스 중력
- 제 9 장. 파라다이스의 독특성

소개

파라다이스는 우주들의 우주의 영원한 중심이며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이 중앙 섬은 주(主) 우주 전체 안에서 조화우주 실체 중 가장 거대한, 조직된 몸체이다. 파라다이스는 물질적 구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거주지이다. 우주 아버지의 모든 지능적 창조는 물질적 거주지들 위에 있다; 따라서 절대 통제 중심 역시 말 그대로 물질적이다. 그리고 또한 영 사물들과 영적 존재들이 실제임을 반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아름다움은 그 물리적 완전의 장엄함에 있다; 하느님 섬의 장관은 거기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화려한 지적 업적들과 마음 발달 안에서 전시되고 있다; 중앙 섬의 영광은 신성한 영 개인성—생명의 빛—의 무한 자질 안에서 내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靈的) 아름다움의 깊이와 이 장엄한 총체의 경이로움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유한 마음의 이해력을 철저히 넘어선다. 신성한 거주지의 영광과 영적 광채는 필사자의 이

PAPER 11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Divine Residence
- 2. Nature of the Eternal Isle
- 3. Upper Paradise
- 4. Peripheral Paradise
- 5. Nether Paradise
- 6. Space Respiration
- 7. Space Functions of Paradise
- 8. Paradise Gravity
- 9. The Uniqueness of Paradise

INTRODUCTION

11:0.1 (118.1) PARADISE is the eternal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e abiding plac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ir divine co-ordinates and associates. This central Isle is the most gigantic organized body of cosmic reality in all the master universe. Paradise is a material sphere as well as a spiritual abode. All of the intelligent cre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domiciled on material abodes; hence must the absolute controlling center also be material, literal. And again it should be reiterated that spirit things and spiritual beings are *real*.

11:0.2 (118.2) The material beauty of Paradise consists in the magnificence of its physical perfection; the grandeur of the Isle of God is exhibited in the superb intellectual accomplishments and mind development of its inhabitants; the glory of the central Isle is shown forth in the infinite endowment of divine spirit personality — the light of life. But the depths of the spiritual beauty and the wonders of this magnificent ensemble are utterly beyond the

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영원으로부터 있다; 빛과 생명의 이 핵이 되는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통도 없다.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of material creatures. The glory and spiritual splendor of the divine abode are impossible of mortal comprehension. And Paradise is from eternity; there are neither records nor traditions respecting the origin of this nuclear Isle of Light and Life.

제 1 장. 신성한 거처

파라다이스는 우주적 영역들에 대한 관리-행정에서 많은 목적들을 제공하지만, 창조체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1차적으로 신(神)의 거주 장소로 존재한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은, 거의 동글지만 구형(球形)은 아닌 이곳의 위쪽 면의 정 중앙, 신(神)들의 주거지에 거주하신다. 우주 아버지의 이 파라다이스 현존은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 그들 둘 모두는 무한한 영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뒤덮여 있다.

하느님은 동일한 이 중앙 그리고 영원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해 왔으며 또 영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그를 발견해 왔으며 또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조화우주적으로 초점화구현 되어있고, 영적으로 개인성구현되어 있으며, 우주들의 우주의 이 중심에 지리적으로 거주한다.

우리는 모두 우주 아버지를 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직선 진로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진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광대함 때문에 신성한 거주지에 관해 많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거대한 간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마치 너희가 유란시아에 명확하게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인 뉴욕, 런던, 로마, 또는 싱가포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의 위치와 거주지를 안다. 만일 너희가 배와 지도 그리고 나침반을 갖고 있는 지능적인 항해자였다면, 너희는 쉽게 이 도시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화되는, 항해 시간과 수단을 가졌다면, 그리고 필요한 안내를 받았다면, 너희는 별이 총총한 지역들을 통하여 안쪽으로 계속 여행하면서 마침내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영적 영광이 빛나는 한 중앙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그리고 이 순환회로부터 저 순환회로를 통하여 선도(先導)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행을 위한 모든 필수품들이 마련되면, 너희는 만물의 중앙에서 하느님의 개인적 현존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마치 너희 자신의 행성에서 멀리 있는 도시들을 찾을 수 있는 것과 아주 똑 같다. 너희가 그러한 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실체성이나 혹은 실재적 실존(實在)을 결코 반증할 수 없다. 우주 창조체들 중 너무나 적은 숫자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했다는 것이, 만물의 중심에 있는 그의 실존의 실체성이나 혹은 그의 영적 개인의 실재성을 결코 반증할 수 없다.

아버지는 이 중앙 위치에서 항상 발견되어진

1. THE DIVINE RESIDENCE

11:1.1 (118.3) Paradise serves many purpose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al realms, but to creature beings it exists primarily as the dwelling place of Deit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s resident at the very center of the upper surface of this well-nigh circular, but not spherical, abode of the Deities. This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while they are both invested by the unspeakable glory of the Infinite Spirit.

11:1.2 (118.4) God dwells, has dwelt, and everlastingly will dwell in this same central and eternal abode. We have always found him there and always will. The Universal Father is cosmically focalized, spiritually personalized, and geographically resident at this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1:1.3 (118.5) We all know the direct course to pursue to find the Universal Father. You are not able to comprehend much about the divine residence because of its remoteness from you and the immensity of the intervening space, but those who are able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se enormous distances know God's location and residence just as certainly and literally as you know the location of New York, London, Rome, or Singapore, cities definitely and geographically located on Urantia. If you were an intelligent navigator, equipped with ship, maps, and compass, you could readily find these cities. Likewise, if you had the time and means of passage, were spiritually qualified, and had the necessary guidance, you could be piloted through universe upon universe and from circuit to circuit, ever journeying inward through the starry realms, until at last you would stand before the central shining of the spiritual glory of the Universal Father. Provided with all the necessities for the journey, it is just as possible to find the personal presence of God at the center of all things as to find distant cities on your own planet. That you have not visited these places in no way disproves their reality or actual existence. That so few of the universe creatures have found God on Paradise in no way disproves either the reality of his existence or the actuality of his spiritual per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11:1.4 (119.1) The Father is always to be found at this

다. 그가 움직였다면 우주적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왜냐하면 창조의 끝에서부터 중력의 우주적 계통들이 이 거주지 중심에 있는 그의 안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들을 통하여 개인성 순환회로를 거슬러가거나 또는 아버지를 향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개인성들을 따라가든지; 우리가 파라다이스 아래쪽을 향하는 물질적 중력의 계통들을 추적하거나 또는 조화우주 기세의 굽이치는 주기를 따라가든지; 영원한 아들을 향하는 영적 중력을 계통을 추적하던지 혹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안쪽을 향한 행렬을 따라가든지; 우리가 마음 순환회로들을 추적하든지 혹은 무한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을 따라가든지—이러한 관찰 중 그 어떤 것으로도 또는 그것들 모두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의 현존을 향해, 그의 중앙 거주지를 향해 직접적으로 인도된다. 이곳에 하느님 개인성이 있고, 분명하게, 그리고 실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리고 그의 무한 존재로부터 생명, 에너지 그리고 개인성의 노도와 같은 물줄기가 모든 우주들을 향해 흘러나간다.

제 2 장. 영원한 섬의 본성

너희가, 비록 너희 천문상의 위치, 항성 체계 안에서의 너희 공간 자리에서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물질적 우주의 광대함을 일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거대한 물질적 우주가 적절하고도 그럴만한 중심지, 물질적 영역과 살아있는 존재들의 모든 이 광대하고도 멀리 퍼지는 창조의 우주 통치자의 존엄성과 무한성과 균형이 맞는, 본부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형태에 있어서 파라다이스는 거주민이 사는 우주 천체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구형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타원체인데, 남북 지름이 동서 지름보다 6분의 1 더 길다. 중앙 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윗면으로부터 아랫면까지의 길이는 동서 지름의 길이의 10분의 1이다.

그것의 고정 상태와 그 섬의 북쪽 끝에서의 기세-에너지의 더 큰 외향-압력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규모에서의 이 차이들이, 주(主)우주 안에서 절대 방향을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 섬은 지리적으로 세 활동 권역들로 나뉘어 있다:

1. 상부 파라다이스.
2.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3. 하부 파라다이스.

우리는 개인성 활동에 사용되는 파라다이스의 표면을 상부 면으로, 그 반대 표면을 하부 면으로 이야기한다.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는, 순전히 개인적이지 아니거나 비(非)개인적인 활동에 대비한다. 삼위일체가 개인적, 곧 상부 평면을, 분별불가

central location. Did he move, universal pandemonium would be precipitated, for there converge in him at this residential center the universal lines of gravity from the ends of creation. Whether we trace the personality circuit back through the universes or follow the ascending personalities as they journey inward to the Father; whether we trace the lines of material gravity to nether Paradise or follow the insurging cycles of cosmic force; whether we trace the lines of spiritual gravity to the Eternal Son or follow the inward procession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whether we trace out the mind circuits or follow the trillions upon trillions of celestial beings who spring from the Infinite Spirit — by any of these observations or by all of them we are led directly back to the Father's presence, to his central abode. Here is God personally, literally, and actually present. And from his infinite being there flow the flood-streams of life, energy, and personality to all universes.

2. NATURE OF THE ETERNAL ISLE

11:21 (119.2) Since you are beginning to glimpse the enormousness of the material universe discernible even from your astronomical location, your space position in the starry systems, it should become evident to you that such a tremendous material universe must have an adequate and worthy capital, a headquarters commensurate with the dignity and infinitude of the universal Ruler of all this vast and far-flung creation of material realms and living beings.

11:22 (119.3) In form Paradise differs from the inhabited space bodies: it is not spherical. It is definitely ellipsoid, being one-sixth longer in the north-south diameter than in the east-west diameter. The central Isle is essentially flat, and the distance from the upper surface to the nether surface is one tenth that of the east-west diameter.

11:23 (119.4) These differences in dimensions, taken in connection with its stationary status and the greater out-pressure of force-energy at the north end of the Isle,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absolute direction in the master universe.

11:24 (119.5) The central Isle is geographically divided into three domains of activity:

- 11:25 (119.6) 1. Upper Paradise.
- 11:26 (119.7) 2. Peripheral Paradise.
- 11:27 (119.8) 3. Nether Paradise.

11:28 (119.9) We speak of that surface of Paradise which is occupied with personality activities as the upper side, and the opposite surface as the nether side. The periphery of Paradise provides for activities that are not strictly personal or

절대자가 하부, 곧 미(未)개인적 평면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를 개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자의 기능적 공간 현존이 하부 파라다이스에 초점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섬은 물질화의 단일 형태—실체의 고정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다이스의 이 순전한 내용물은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 전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공간 잠재력의 균일한 조직이다. 그것은 다른 우주들에서 여러 이름들로 받아들여졌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절대원(絕對元)이라고 불렀다. 이 파라다이스 근원 물질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적인 비(非)영적 표현이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이다; 파라다이스는 중복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이 무한성 한계로부터 자아-해방이라는 그의 기법의 한 부분으로서, 시간-공간 창조조차도, 가능한 하위-무한으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파라다이스 안에 조화우주 실체를 위한 모든 절대 잠재를 집중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주들의 우주가 이들 본질특성들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파라다이스가 시간-공간 제한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시간 없이 존재하고 그리고 공간 안에서는 위치가 없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공간은 하부 파라다이스 바로 아래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상부 파라다이스 바로 위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섬의 시민들은 사건들의 시간 없는 순차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너희가 납득하는 바와 같이, 시간은 파라다이스 실존의 특색이 아니다. 움직임은 파라다이스에서 선천적이지 않다; 그것은 의지적이다. 그러나 거리의 개념은, 절대 거리라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에서 상대적 위치들에 적용될 수 있듯이, 그것은 매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비(非)공간적이다; 따라서 그 지역들은 절대이고 그러므로 필사자 마음의 개념을 뛰어넘는 많은 방법에서 봉사할 수 있다.

제 3 장. 상부 파라다이스

상부 파라다이스에는 광대한 세 활동구체들, 신(神) 현존, 최고 거룩 구체, 그리고 거룩 지대가 있다. 즉각적으로 신(神) 현존을 둘러싸고 있는 광대한 지역은 최고 거룩구체로 제외되어 있고 경배, 삼위일체화구현,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의 기능들을 위해 예비 되어있다. 이 지대에는 물질적 구조물도 없고 순수하게 지적인 창조계들도 없다; 그것들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 파라다이스의 최고 거룩구체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웅장함을 인간 마음에게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나에게서 헛된 일이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영적이고, 너희는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다. 순수하게 영적인 실체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외관상 실존하지 않는다.

nonpersonal. The Trinity seems to dominate the personal or upper plane,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nether or impersonal plane. We hardly conceiv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s a person, but we do think of the functional space presence of this Absolute as focalized on nether Paradise.

11:2.9 (120.1) The eternal Isle is composed of a single form of materialization — stationary systems of reality. This literal substance of Paradise is a homogeneous organization of space potency not to be found elsewhere in all the wide universe of universes. It has received many names in different universes, and the Melchizedeks of Nebadon long since named it *absolutum*. This Paradise source material is neither dead nor alive; it is the original nonspiritual express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t is *Paradise*, and Paradise is without duplicate.

11:2.10 (120.2) It appears to us tha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s concentrated all absolute potential for cosmic reality in Paradise as a part of his technique of self-liberation from infinity limitations, as a means of making possible subinfinite, even time-space, creation. But it does not follow that Paradise is time-space limited just because the universe of universes discloses these qualities. Paradise exists without time and has no location in space.

11:2.11 (120.3) Roughly: space seemingly originates just below nether Paradise; time just above upper Paradise. Time, as you understand it, is not a feature of Paradise existence, though the citizens of the central Isle are fully conscious of nontime sequence of events. Motion is not inherent on Paradise; it is volitional. But the concept of distance, even absolute distance, has very much meaning as it may be applied to relative locations on Paradise. Paradise is nonspatial; hence its areas are absolute and therefore serviceable in many ways beyond the concept of mortal mind.

3. UPPER PARADISE

11:3.1 (120.4) On upper Paradise there are three grand spheres of activity, the *Deity presence*, the *Most Holy Sphere*, and the *Holy Area*. The vast region immediately surrounding the presence of the Deities is set aside as the Most Holy Sphere and is reserved for the functions of worship, trinitization, and high spiritual attainment. There are no material structures nor purely intellectual creations in this zone; they could not exist there. It is useless for me to undertake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the divine nature and the beauteous grandeur of the Most Holy Sphere of Paradise. This realm is wholly spiritual, and you are almost wholly material. A purely spiritual reality is, to a

최고거룩의 지대에 물리적 물질화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거룩한 땅에서 보낸 너희의 물질적인 날들에 대한 풍부한 기념품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의 추억의 역사 지역들에는 여전히 더욱 많다.

거룩지대, 바깥에 놓인 혹은, 거주 지역은 일곱 개의 동심원 지대들로 나뉘어 있다. 파라다이스는 때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그의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이며, 이 일곱 지대들은 종종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펜션들”이라고 불린다. 내부 혹은 첫 번째 지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하보나의 원주민들이 차지한다. 그 다음 또는 두 번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의 일곱 초우주들의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이다. 이 두 번째 지대는 부분적으로 거대한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진화적 진보의 우주들로부터 흘러져 나오는 영 존재들과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이 부분들 각각은 한 단일 초우주의 개인성들의 복지와 전진에 배타적으로 바쳐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필요를 거의 무한하게 뛰어넘는다.

파라다이스의 일곱 부분들 각각은 10억 개의 영화롭게 된 개별 활동 집단들의 거점 본부에 알맞은 거주단위들로 나뉘어 있다. 이들 단위 1천개가 모여 한 부분을 이룬다. 10만개의 부분들이 한 회중과 같다. 1,000만개의 회중들이 한 집회를 구성한다. 10억 개의 집회들이 하나의 광(廣)단위를 만든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계열들은 두 번째 광(廣)단위, 세 번째 광(廣)단위 식으로, 일곱 번째 광(廣)단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광(廣)단위 일곱 개가 모여 주(主)단위를 이루며, 일곱 주(主)단위들은 하나의 상급 단위를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일곱으로 상승하는 계열들이 상급 단위, 초(超)상급 단위, 천상 단위, 초(超)천상 단위를 지나 최극 단위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가능한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개념을 뛰어넘는 숫자인, 파라다이스에 있는 거주전용의 경이적인 숫자는 거룩한 땅의 배정된 지대 중 1%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는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 존재들을 위한, 안쪽을 향한 그들의 길을 가는 존재들을 위한 매우 풍부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제 4 장. 가장자리 파라다이스

중앙 섬은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끝나지만,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단 각도는 모든 둘러싸인 지역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분간될 수 없다.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 표면은, 부분적으로, 영 개인성의 다양한 집단들을 위한 도착과 출발장

purely material being, apparently nonexistent.

11:3.2 (120.5) While there are no physical materializations in the area of the Most Holy, there are abundant souvenirs of your material days in the Holy Land sectors and still more in the reminiscent historic areas of peripheral Paradise.

11:3.3 (120.6) The Holy Area, the outlying or residential region, is divided into seven concentric zones. Paradise is sometimes called “the Father’s House” since it is his eternal residence, and these seven zones are often designated “the Father’s Paradise mansions.” The inner or first zone is occupied by Paradise Citizens and the natives of Havona who may chance to be dwelling on Paradise. The next or second zone is the residential area of the nativ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is second zone is in part subdivided into seven immense divisions, the Paradise home of the spirit beings and ascendant creatures who hail from the universe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Each of these sectors is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the personalities of a single superuniverse, but these facilities are almost infinitely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11:3.4 (121.1) Each of the seven sectors of Paradise is subdivided into residential units suitable for the lodgment headquarters of one billion glorified individual working groups. One thousand of these units constitute a division. One hundred thousand divisions equal one congregation. Ten million congregations constitute an assembly. One billion assemblies make one grand unit. And this ascending series continues through the second grand unit, the third, and so on to the seventh grand unit. And seven of the grand units make up the master units, and seven of the master units constitute a superior unit; and thus by sevens the ascending series expands through the superior, supersuperior, celestial, supercelestial, to the supreme units. But even this does not utilize all the space available. This staggering number of residential designations on Paradise, a number beyond your concept, occupies considerably less than one per cent of the assigned area of the Holy Land. There is still plenty of room for those who are on their way inward, even for those who shall not start the Paradise climb until the times of the eternal future.

4. PERIPHERAL PARADISE

11:4.1 (121.2) The central Isle ends abruptly at the periphery, but its size is so enormous that this terminal angle is relatively indiscernible within any circumscribed area. The peripheral surface of Paradise is occupied, in part, by the landing and

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비(非)충만-공간 지대들이 거의 가장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성 운송들은 이들 지역 안에서 파라다이스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운송 초(超)천사 또는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들은 상부 파라다이스는 물론 하부 파라다이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일곱 주(主) 영들은, 아들의 빛나는 천체들과 하보나 세계들의 내부 순환회로 사이에 있는 공간 안에서 파라다이스를 회전하는, 영의 일곱 구체들 위에 힘과 권한이 있는 그들의 개인적 자리들을 갖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 기세-초점 본부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서서히 회전하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현존은, 일곱 초우주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어떤 파라다이스 에너지들을 위한 일곱 섬광(閃光) 장소들의 위치를 표시한다.

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에게 바쳐진, 창조자 아들들에게 배정된 거대한 역사적 그리고 예언적 전시 장소들이 있다. 거기에는 현재 설치되었거나 또는 예정된 이 역사 보호구역들이 정확하게 7조 개가 있지만, 이러한 준비들 전체는 그렇게 배정된 가장자리 지역 중 그 부분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광대한 이 예정지들이, 현재 알려졌고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곳에 언젠가 있게 될 창조계에 속한다고 추론한다.

존재하는 우주들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되어 온 파라다이스의 그 부분은 오직 1 내지 4%만 사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이러한 활동에 배정된 그 장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적어도 1백만 배가 된다. 파라다이스는 거의 무한한 창조의 활동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의 영광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야만 하며, 기다리는 동안 상송해야만 하는데, 이는 진실로 “우주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육신안의 생명을 생존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눈이 본적이 없고, 귀가 들은 적이 없으며 그것이 필사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하부 파라다이스

하부 파라다이스에 관하여, 우리는 계시된 것만을 알며; 개인성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영 지능체들의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신(神) 절대자도 거기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물리적-에너지와 조화우주-기세 순환회로들이 하부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되었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다:

dispatching fields for various groups of spirit personalities. Since the nonpervaded-space zones nearly impinge upon the periphery, all personality transports destined to Paradise land in these regions. Neither upper nor nether Paradise is approachable by transport supernaphim or other types of space traversers.

11:4.2 (121.3)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their personal seats of power and authority on the seven spheres of the Spirit, which circle about Paradise in the space between the shining orbs of the Son and the inner circuit of the Havona worlds, but they maintain force-focal headquarters on the Paradise periphery. Here the slowly circulating presences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indicate the location of the seven flash stations for certain Paradise energies going forth to the seven superuniverses.

11:4.3 (121.4) Here on peripheral Paradise are the enormous historic and prophetic exhibit areas assigned to the Creator Sons, dedicated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re are just seven trillion of these historic reservations now set up or in reserve, but these arrangements all together occupy only about four per cent of that portion of the peripheral area thus assigned. We infer that these vast reserves belong to creations sometime to be situated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known and inhabited seven superuniverses.

11:4.4 (121.5) That portion of Paradise which has been designated for the use of the existing universes is occupied only from one to four per cent, while the area assigned to these activities is at least one million times that actually required for such purposes. Paradise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the activities of an almost infinite creation.

11:4.5 (121.6) But a further attempt to visualize to you the glories of Paradise would be futile. You must wait, and ascend while you wait, for truly, “Eye has not seen, nor ear heard, neither has it entered into the mind of mortal man, the things which the Universal Father has prepared for those who survive the life in the flesh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5. NETHER PARADISE

11:5.1 (122.1) Concerning nether Paradise, we know only that which is revealed; personalities do not sojourn there. It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e affairs of spirit intelligences, nor does the Deity Absolute there function. We are informed that all physical-energy and cosmic-force circuits have their origin on nether Paradise, and that it is constituted as follows:

1. 하부 파라다이스의 중앙 부분 중에서, 삼위 일체의 위치 직접 밑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의 지대이다.

2. 이 지대는 이름없는 지역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3. 아래 표면의 외곽 여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간 잠재력과 기세-에너지로서 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광대한 타원형 기세 중심의 활동들은 어느 삼원일체(三元一體)의 알려진 기능들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간의 원초(원초)기세-충전이 이 지역 안에 초점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지대로 구성 된다: 가장 안쪽은 파라다이스 자체의 기세-에너지 활동들의 초점이다; 가장 바깥쪽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능들로 정체성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간-지대의 공간 기능들에 관하여는 확신이 없다.

이 기세 중심의 내부 지대는, 물리적 우주의 가장 외부에 있는 경계선들을 향해 그 맥동들이 직접 흐르는 거대한 심장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세-에너지들을 지도하고 변경시키지만 그것들을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 원초(원초)기세의 실제 압력-현존은 남쪽 지역들에서보다 파라다이스 중심의 북쪽 끝에서 분명하게 더 크다; 이것은 균일하게 나타난 차이이다. 공간의 모체 기세는, 이 기세-에너지의 기초 형태의 분산과 관계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환적 체계의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북쪽에서 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서 압력들 속에는 때때로 두드러진 차이들이 또한 있다. 이 지대로부터 발산되는 기세들은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중력에 응답하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 중력에는 항상 순응한다.

기세 중심의 중간-지대가 이 지역을 즉시 둘러싼다. 이 중간-지대는, 활동의 3순환주기를 통하여 그것이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의 이들 맥동은 동-서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은 북-남 방향으로 일어나며, 반면 가장 큰 동요는 모든 방향, 일반화된 확대와 축소로 일어난다. 이 중간-지역의 기능은 실제로 정체성이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기세 중심의 내부와 외부 지대 사이에서 상호보담적인 조절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지대가 주(主)우주 의 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을 분리하는 중간-공간 또는 고요한 지대들의 통제 기능구조라고 믿는 자들이 많지만, 어떤 증거 또는 계시도 이것을 확인한 바 없다. 이 추론은 이 중간-지역이, 주(主)우주 의 비충만-공간 기능구조의 기능함과 관련된 어떤 방식이라는 지식에서 유래되고 있다.

외부 지대는 미(未)-정체성확인 공간 잠재의 세 동심원의 그리고 타원형 띠들 중에서 가장 크

11:5.2 (122.2) 1. Directly underneath the location of the Trinity, in the central portion of nether Paradise, is the unknown and unrevealed Zone of Infinity.

11:5.3 (122.3) 2. This Zone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an unnamed area.

11:5.4 (122.4) 3. Occupying the outer margins of the under surface is a region having mainly to do with space potency and force-energy. The activities of this vast elliptical force center are not identifiable with the known functions of any triunity, but the primordial force-charge of space appears to be focalized in this area. This center consists of three concentric elliptical zones: The innermost is the focal point of the force-energy activities of Paradise itself; the outermost may possibly be identified with th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e are not certain concerning the space functions of the mid-zone.

11:5.5 (122.5) *The inner zone of this force center seems to act as a gigantic heart whose pulsations direct currents to the outermost borders of physical space. It directs and modifies force-energies but hardly drives them. The reality pressure-presence of this primal force is definitely greater at the north end of the Paradise center than in the southern regions; this is a uniformly registered difference. The mother force of space seems to flow in at the south and out at the north through the operation of some unknown circulatory system which is concerned with the diffusion of this basic form of force-energy. From time to time there are also noted differences in the east-west pressures. The forces emanating from this zone are not responsive to observable physical gravity but are always obedient to Paradise gravity.*

11:5.6 (122.6) *The mid-zone of the force center immediately surrounds this area. This mid-zone appears to be static except that it expands and contracts through three cycles of activity. The least of these pulsations is in an east-west direction, the next in a north-south direction, while the greatest fluctuation is in every direction, a generalized expansion and contraction. The function of this mid-area has never been really identified, but it must have something to do with reciprocal adjustment between the inner and the outer zones of the force center. It is believed by many that the mid-zone is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midspace or quiet zones which separate the successiv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but no evidence or revelation confirms this. This inference is derived from the knowledge that this mid-area is in some manner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nonpervaded-space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11:5.7 (122.7) *The outer zone is the largest and most active of the three concentric and elliptical belts of unidentified space potential. This area is the site of*

고 가장 활동적이다. 이 지역은 추측되지 않는 장소이며, 모든 방향에서 일곱 초우주의 최 외곽 경계 쪽으로 공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 너머로 모든 외부공간의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권역들을 온통 뒤덮는, 발산의 중앙 순환회로점이다. 이 공간 현존은, 삼위일체로서 행동할 때 드러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무한 신(神)들의 의지와 명령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미(未)개인적이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파라다이스 중심, 중앙 초점화구현인 것으로 믿어진다.

기세의 모든 형태들과 에너지의 모든 위상들은 순환회로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우주에 두루 순회하고 확실한 경로들에 의해 돌아온다. 그러나 이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활성화된 지대의 방사무들과 함께, 나가거나 혹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결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외부 지대는 거대한 비율의 오랜 세월에 해당하는 주기로 맥동한다. 이 중심의 공간-기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보다 약간 더 오래 밖으로 나가며; 그 다음에는 그것과 비슷한 시간 안에 돌아온다. 그리고 이 중심의 공간-기세 현시활동들은 우주적이다; 그것들은 퍼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두루 확장한다.

모든 물리적 기세,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 하나이다. 모든 기세-에너지는 기원적으로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의 공간 순환회로를 완성한 후에는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주들의 우주의 에너지들과 물질적 조직들 모두가 그들의 현재 현상적 상태들 그대로 하부 파라다이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공간은 물질과 전(前)물질의 여러 형태들의 발상지이다. 파라다이스 기세 중심의 외부 지대가 공간-에너지들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거기에서 기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기세나 에너지 또는 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맥동들은 공간의 호흡 작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지대의 흡입과 발산은 공간의 20억 년 확대-축소 주기와 동조되어 있다.

제 6 장. 공간 호흡 작용

우리는 공간 호흡 작용의 실제적인 기능구조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모든 공간이 교대로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을 관찰할 뿐이다. 이 호흡 작용은 충만 공간의 수평적 확장과 파라다이스 위쪽 그리고 아래쪽의 광대한 공간 저장소들 속에 존재하는 비(非)충만 공간의 수직적 확장들 둘 모두에 영향을 준다. 이 공간 저장소들의 부피 윤곽들을 상상해 보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너희는 모래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충만 공간에서의 수평적 확장의 우주들이 팽창할 때, 비충만 공간에서의 수직적 확장의 저장소들은, 거꾸로 축소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부 파라다이스 바로 아래에는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의 합류점이 있다. 두 공간 유형

unimagined activities, the central circuit point of emanations which proceed spaceward in every direction to the outermost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on beyond to overspread the enormous and incomprehensible domains of all outer space. This space presence is entirely impersonal notwithstanding that in some undisclosed manner it seems to be indirectly responsive to the will and mandates of the infinite Deities when acting as the Trinity. This is believed to be the central focalization, the Paradise center,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1:5.8 (123.1) All forms of force and all phases of energy seem to be encircuited; they circulate throughout the universes and return by definite routes. But with the emanations of the activated zon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re appears to be either an outgoing or an incoming — never both simultaneously. This outer zone pulsates in agelong cycles of gigantic proportions. For a little more than one billion Urantia years the space-force of this center is outgoing; then for a similar length of time it will be incoming. And the space-force manifestations of this center are universal; they extend throughout all pervadable space.

11:5.9 (123.2) All physical force, energy, and matter are one. All force-energy originally proceeded from nether Paradise and will eventually return thereto following the completion of its space circuit. But the energies and material organization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did not all come from nether Paradise in their present phenomenal states; space is the womb of several forms of matter and prematter. Though the outer zone of the Paradise force center is the source of space-energies, space does not originate there. Space is not force, energy, or power. Nor do the pulsations of this zone account for the respiration of space, but the incoming and outgoing phases of this zone are synchronized with the two-billion-year expansion-contraction cycles of space.

6. SPACE RESPIRATION

11:6.1 (123.3) We do not know the actual mechanism of space respiration; we merely observe that all space alternately contracts and expands. This respiration affects both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and the vertical extensions of unpervaded space which exist in the vast space reservoirs above and below Paradise. In attempting to imagine the volume outlines of these space reservoirs, you might think of an hourglass.

11:6.2 (123.4) As the universes of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expand, the reservoirs of the vertical extension of unpervaded space contract and vice versa. There is a confluence of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들은 변질시키는 규정 통로들을 통해 흐르는데, 그곳에는 조화우주의 축소 그리고 확대 주기 안에서 충만 가능한 공간을 충만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비충만”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기체들과 에너지들과 힘들 그리고 충만하게 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존들이 비(非)충만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수직 (저장소)공간이 항상 수평 (우주)공간의 평형추로 기능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비충만 공간에 관하여 거기에 창조적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공간 저장소들에 대해 실제로 거의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우주들의 우주의 공간-확대-축소 주기들을 균형 잡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뿐이다.

공간 호흡 작용의 주기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보다 약간 긴 기간 동안 각 위상 안에서 전개된다. 한 위상에서 우주들이 팽창하며; 다음 위상에서 그것들이 축소한다. 충만 공간은 지금 확대하는 위상의 중앙-지점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비충만 공간은 축소 위상의 중앙-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두 공간 확장들의 최 외곽 한계들이 지금 파라다이스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들었다. 지금 비충만-공간 저장소는, 우주의 충만 공간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로부터 제4 외부 공간 차원을 향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초월하여 바깥쪽을 향해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만큼, 상부 파라다이스 위로 그리고 하부 파라다이스 아래로 수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동안 공간 저장소들이 축소하는 반면, 전체 수평 공간의 주(主)우주와 기체 활동들은 확대한다. 그리하여 전체 확대-축소 주기를 마치는 데에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0억년보다 약간 더 소요된다.

just underneath nether Paradise. Both types of space there flow through the transmuting regulation channels, where changes are wrought making pervadable space nonpervadable and vice versa in the contraction and expansion cycles of the cosmos.

11:6.3 (123.5) “Unpervaded” space means: unpervaded by those forces, energies, powers, and presences known to exist in pervaded space. We do not know whether vertical (reservoir) space is destined always to function as the equipoise of horizontal (universe) space; we do not know whether there is a creative intent concerning unpervaded space; we really know very little about the space reservoirs, merely that they exist, and that they seem to counterbalance the space-expansion-contraction cycl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1:6.4 (123.6) The cycles of space respiration extend in each phase for a little more than one billion Urantia years. During one phase the universes expand; during the next they contract. Pervaded space is now approaching the mid-point of the expanding phase, while unpervaded space nears the mid-point of the contracting phase, and we are informed that the outermost limits of both space extensions are, theoretically, now approximately equidistant from Paradise. The unpervaded-space reservoirs now extend vertically above upper Paradise and below nether Paradise just as far as the pervaded space of the universe extends horizontally outward from peripheral Paradise to and even beyond the fourth outer space level.

11:6.5 (124.1) For a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the space reservoirs contract while the master universe and the force activities of all horizontal space expand. It thus requires a little over two billion Urantia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expansion-contraction cycle.

제 7 장. 파라다이스의 공간 기능

파라다이스의 표면들의 어디에도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파라다이스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를 “바라본다면”, 그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나가고 있거나 혹은 들어오고 있는 비충만 공간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에 닿을 수 없다; 오직 고요한 중간-공간 지대들만이 중앙 섬과 접촉하게 된다.

파라다이스는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대들의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핵이다. 지리적으로 이 지대들은 파라다이스의 상대적 확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아마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약화된 공간 움직임의 이들 지대가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관찰한

7. SPACE FUNCTIONS OF PARADISE

11:7.1 (124.2) Space does not exist on any of the surfaces of Paradise. If one “looked” directly up from the upper surface of Paradise, one would “see” nothing but unpervaded space going out or coming in, just now coming in. Space does not touch Paradise; only the quiescent *mid-space zones* come in contact with the central Isle.

11:7.2 (124.3) Paradise is the actually motionless nucleus of the relatively quiescent zones existing between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Geographically these zones appear to be a relative extension of Paradise, but there probably is some motion in them.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m, but we observe that these zones of lessened space motion separate pervaded and unpervaded

다. 비슷한 지대들이 한 때 충만 공간의 차원들 사이에 존재했었지만, 이것들은 지금 더 약화되어 고요하다.

전체 공간의 수직적 횡단 부분은 말타 십자가를 약간 닮았을 것인데, 수평축들은 충만 (우주) 공간을 그리고 수직 축들은 비충만 (저장소) 공간을 나타낸다. 네 축들 사이에 있는 지역들은 마치 중간-공간 지대들이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정지된 이 중간-공간 지대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고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공간의 경계선들을 에워싸게 되고 공간 저장소들 그리고 충만 공간의 전체 수평 확장들 모두를 완벽하게 포함시킬 것이다.

공간은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 하위-절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도 아니며 궁극자의 기능도 아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증여이다, 그리고 대우주와 모든 외부 지역들의 공간은, 선조(先祖)가 되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에 의해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충만 공간은, 가장자리 파라다이스를 향한 가까운 접근으로부터, 제4 공간 차원을 통해 바깥으로 그리고 주(主)우주 의 가장자리를 뛰어 넘어서, 수평적으로 확장하지만, 얼마나 멀리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유한하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V자 모양의 평면이 그 꼭짓점을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 거의 접하고, 파라다이스의 상부 그리고 하부 표면들 둘 양쪽을 향해 직각으로 위치했다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타원 회전을 하는 이 평면을 눈에 그려본다면, 그 회전은 충만 공간의 부피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우주들 안에 있는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도, 수평 공간에 대한 상부 그리고 하부 한계가 있다. 만일 누군가가 오르본톤의 평면을 향해 직각으로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충분히 멀리 멀어질 수 있다면, 충만 공간의 상부 또는 하부 한계와 결국에는 만나게 될 것이다. 주(主)우주 의 알려진 규모 안에서 이들 한계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더 멀리 벌어진다; 공간은 두꺼워진다. 그리고 창조의 평면, 우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두꺼워진다.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으로부터 일곱 초우주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공간 차원들 사이에 있는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은, 정지된 공간 활동들의 거대한 타원형 지역들이다. 이 지대들은 규칙적으로 진행하면서 파라다이스 주변을 도는 거대한 성운들을 분리시킨다. 너희는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우주들이, 파라다이스 둘레를 휘돌아 회전하는 은하계들의 거대한 행진으로서, 상대적으로 고요한 공간 지대들에 의해 안쪽과 바깥쪽에 두리에서 묶여있고 또한 휴면상태의 중간-공간

space. Similar zones once existed between the levels of pervaded space, but these are now less quiescent.

11:7.3 (124.4) The vertical cross section of total space would slightly resemble a Maltese cross, with the horizontal arms representing pervaded (universe) space and the vertical arms representing unpervaded (reservoir) space. The areas between the four arms would separate them somewhat as the midspace zones separate pervaded and unpervaded space. These quiescent midspace zones grow larger and larger at greater and greater distances from Paradise and eventually encompass the borders of all space and completely incapsulate both the space reservoirs and the entir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11:7.4 (124.5) Space is neither a subabsolute condition within, nor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neither is it a function of the Ultimate. It is a bestowal of Paradise, and the space of the grand universe and that of all outer regions is believed to be actually pervaded by the ancestral space potenc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From near approach to peripheral Paradise, this pervaded space extends horizontally outward through the fourth space level and beyond the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how far beyond we do not know.

11:7.5 (124.6) If you imagine a finite, but inconceivably large, V-shaped plane situated at right angles to both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Paradise, with its point nearly tangent to peripheral Paradise, and then visualize this plane in elliptical revolution about Paradise, its revolution would roughly outline the volume of pervaded space.

11:7.6 (124.7) There is an upper and a lower limit to horizontal space with reference to any given location in the universes. If one could move far enough at right angles to the plane of Orvonton, either up or down, eventually the upper or lower limit of pervaded space would be encountered. Within the known dimension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limits draw farther and farther apart at greater and greater distances from Paradise; space thickens, and it thickens somewhat faster than does the plane of creation, the universes.

11:7.7 (125.1) The relatively quiet zones between the space levels, such as the one separating the seven superuniverses from the first outer space level, are enormous elliptical regions of quiescent space activities. These zones separate the vast galaxies which race around Paradise in orderly procession. You may visualize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here untold universes are now in process of formation, as a vast procession of galaxies swinging around Paradise, bounded above and below by the midspace zones of

지대들에 의해 위 아래로 묶인 상태에서, 지금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다.

공간 차원은 상대적 정지됨에 의해 모든 측면들에서 둘러싸인 움직임의 타원형 지역으로 그렇게 기능한다. 움직임과 정지됨의 그러한 관계들은 그것들이 파라다이스의 섬 둘레를 언제까지나 회전함에 따라 조화우주 기체와 창발 에너지에 의해 우주적으로 따라오는, 움직임에 대하여 줄어든 저항의 구부러진 공간 경로를 구성한다.

주(主)우주 의, 성운들의 시계 방향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교대 흐름과 관련된, 이 교대 지대 설정은 붕괴되는 그리고 분산되는 활동 지점에 이르는 중력 압력의 가속화를 방지하도록 고안된 물리적 중력의 안정에 있는 요소이다. 그러한 준비는 반(反)중력 효과를 발휘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속도에 대한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활동한다.

제 8 장. 파라다이스 중력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의 끌어당김이 전체 공간의 모든 우주들의 세계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중력은 파라다이스의 물리적 현존의 만능의 장악력이다. 중력은, 만물이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며 그의 안에 만물이 있는, 영원한 하느님의 우주적 물리적 장식품을 구성하는 빛나는 별들과 타오르는 태양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구체들을 묶는 전능한 끈이다.

절대적 물질 중력의 중심 그리고 초점은 파라다이스 섬인데, 하보나를 도는 암흑중력체들에 의해 보완되고 상부 그리고 하부 공간 저장소들에 의해 평형을 이룬다. 하부 파라다이스의 알려진 모든 방사물들은 주(主)우주 의 타원 공간 차원들의 끝없는 순환회로 위에서 작동하는 중앙 중력 끌어당김에 일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한다. 조화우주 실체의 알려진 모든 형태는 세월의 구부러짐, 순환계의 경향, 거대한 타원의 회전 움직임을 갖는다.

공간은 중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지만, 중력에 대해 평형추로서 활동한다. 공간 완충물이 없다면, 폭발 활동이 주변의 공간 본체들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충만 공간 역시 물리적 또는 직선적 중력에 반(反)중력 영향을 발휘한다; 공간은 그러한 중력 활동을 지연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다. 절대 중력은 파라다이스 중력이다.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은 에너지 또는 물질의 전기적 단계에 속해 있다; 그것은 중앙, 초-, 그리고 외부 우주 안에서, 적당한 물질화가 발생된 곳이면 어디서나 작동한다.

조화우주 기체, 물리적 에너지, 우주 힘,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의 수많은 형태들은 완전하게 본

quiescence and bounded on the inner and outer margins by relatively quiet space zones.

11:7.8 (125.2) A space level thus functions as an elliptical region of motion surrounded on all sides by relative motionlessness. Such relationships of motion and quiescence constitute a curved space path of lessened resistance to motion which is universally followed by cosmic force and emergent energy as they circle forever around the Isle of Paradise.

11:7.9 (125.3) This alternate zoning of the master universe, in association with the alternate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flow of the galaxies, is a factor in the stabilization of physical gravity designed to prevent the accentuation of gravity pressure to the point of disruptive and dispersive activities. Such an arrangement exerts antigravity influence and acts as a brake upon otherwise dangerous velocities.

8. PARADISE GRAVITY

11:8.1 (125.4) The inescapable pull of gravity effectively grips all the worlds of all the universes of all space. Gravity is the all-powerful grasp of the physical presence of Paradise. Gravity is the omnipotent strand on which are strung the gleaming stars, blazing suns, and whirling spheres which constitute the universal physical adornment of the eternal God, who is all things, fills all things, and in whom all things consist.

11:8.2 (125.5) The center and focal point of absolute material gravity is the Isle of Paradise, complemented by the dark gravity bodies encircling Havona and equilibrated by the upper and nether space reservoirs. All known emanations of nether Paradise invariably and unerringly respond to the central gravity pull operating upon the endless circuits of the elliptical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Every known form of cosmic reality has the bend of the ages, the trend of the circle, the swing of the great ellipse.

11:8.3 (125.6) Space is nonresponsive to gravity, but it acts as an equilibrant on gravity. Without the space cushion, explosive action would jerk surrounding space bodies. Pervaded space also exerts an antigravity influence upon physical or linear gravity; space can actually neutralize such gravity action even though it cannot delay it. Absolute gravity is Paradise gravity. Local or linear gravity pertains to the electrical stage of energy or matter; it operates within the central, super-, and outer universes, wherever suitable materialization has taken place.

11:8.4 (125.7) The numerous forms of cosmic force, physical energy, universe power, and various materializations disclose three general, though not

명하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들을 나타낸다:

1. 중력 이전(以前) 단계들 (기세). 이것은 우주 기세의 에너지-이전형태 안에 있는 공간 잠재력의 개별화에서의 첫 단계이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소(分離素)라고 불리는, 공간의 원초기세-충전의 개념과 비슷하다.

2. 중력 단계들 (에너지). 공간의 기세-충전에 대한 이 변경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해 산출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중력의 끌어당김에 응답하는 에너지 체계들이 나타난다는 신호이다. 이 창발 에너지는 기원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어진 변형의 결과로 소위 음성 그리고 양성의 본질특성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궁극력이라고 부른다.

3. 중력 이후 단계들 (우주 힘). 이 단계에는, 에너지-물질이 직선적 중력의 통제에 대하여 응답을 나타낸다. 중앙우주 안에는 이 물리적 체계들이 삼력소(三力素)라고 알려진 삼중적 조직들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 대한 초(超)힘 모체(母體) 체계들이다. 초우주들의 물리적 체계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동원된다. 이 물질적 조직들은 조성에서 이원적(二元的)이며 중력소(重力素)라고 알려져 있다. 하보나를 돌고 있는 암흑중력체들은 삼력소(三力素)도 아니고 중력소(重力素)도 아니며, 그것들의 이끄는 힘은 물리적 중력의 직선적, 그리고 절대적 두 형태들 모두를 나타낸다.

공간 잠재력은 중력의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이 시원적 자질은 실체의 실재적 차원은 아니지만, 모든 상대적인 기능적 비(非)영 실체들—기세-에너지의 모든 현시활동들, 그리고 힘과 물질의 조직, 예게 조상이 된다. 공간 잠재력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용어이다. 그것은 공간의 조상이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의미는 공간 안에 실존하는 잠재와 잠재력의 개념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발산하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구성하는 그 모든 절대적 영향들과 잠재들을 포함하는 것은 대략 이해가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물질의 절대적 근원이자 영원한 초점이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계시자이고 규제자이며 파라다이스를 그 근원이자 기원으로 갖는 저장소이다. 분별불가 절대자의 우주적 현존은, 파라다이스 현존의 유연한 긴장, 중력 확장의 잠재적 무한성의 개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표현이 미숙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파라다이스의 서로 다른 규모들과 둘러싸는 창조계를 가리키는 현상, 그 집합체와 수직을 이루는 평면 안에서, 중력이 왜 항상 우선적으로 활동하는가를 설명한다.

perfectly clear-cut, stages of response to Paradise gravity:

11:8.5 (126.1) 1. *Pregravity Stages (Force)*. This is the first step in the individuation of space potency into the pre-energy forms of cosmic force. This state is analogous to the concept of the primordial force-charge of space, sometimes called *pure energy* or *segregata*.

11:8.6 (126.2) 2. *Gravity Stages (Energy)*. This modification of the force-charge of space is produced by the a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It signalizes the appearance of energy systems responsive to the pull of Paradise gravity. This emergent energy is originally neutral but consequent upon further metamorphosis will exhibit the so-called negative and positive qualities. We designate these stages *ultimata*.

11:8.7 (126.3) 3. *Postgravity Stages (Universe Power)*. In this stage, energy-matter discloses response to the control of linear gravity. In the central universe these physical systems are threefold organizations known as *triata*. They are the superpower mother systems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The physical systems of the superuniverses are mobilized by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These material organizations are dual in constitution and are known as *gravita*. The dark gravity bodies encircling Havona are neither *triata* nor *gravita*, and their drawing power discloses both forms of physical gravity, linear and absolute.

11:8.8 (126.4) Space potency is not subject to the interactions of any form of gravitation. This primal endowment of Paradise is not an actual level of reality, but it is ancestral to all relative functional nonspirit realities — all manifestations of force-energy and the organization of power and matter. Space potency is a term difficult to define. It does not mean that which is ancestral to space; its meaning should convey the idea of the potencies and potentials existent within space. It may be roughly conceived to include all those absolute influences and potentials which emanate from Paradise and constitute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1:8.9 (126.5) Paradise is the absolute source and the eternal focal point of all energy-matter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qualified Absolute is the revealer, regulator, and repository of that which has Paradise as its source and origin.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seems to be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a potential infinity of gravity extension, an elastic tension of Paradise presence. This concept aids us in grasping the fact that everything is drawn inward towards Paradise. The illustration is crude but nonetheless helpful. It also explains why gravity always acts preferentially in the plane perpendicular to the mass, a phenomenon

indicative of the differential dimensions of Paradise and the surrounding creations.

제 9 장. 파라다이스의 독특성

파라다이스는 그것이 시원(始原)적 기원 영역이고 모든 영 개인성들을 위한 운명의 최종목적지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역우주들의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 모두가 즉각적으로 파라다이스를 향한 운명에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파라다이스는 모든 초물질적 개인성들을 위한 욕망의 목적지로 여전히 남아 있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다; 그것은 우주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영원한 하보나 우주의 실제 부분도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 섬을 신성한 우주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는 영원하고 배타적인 실존다.

과거의 영원 속에서, 우주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영(靈) 자아에 대한 무한 개인성 표현을 할 때, 그는 동시적으로 자신의 비(非)개인적 자아의 무한 잠재를 파라다이스로써 제시하였다. 비(非)개인적 그리고 비(非)영적 파라다이스는 기원 아들을 영존시킨 아버지의 의지와 행위에 필연적 반향이 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실제적 두 위상들—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영적(靈的) 그리고 비(非)영적—안에 실체를 구체적으로 투사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한 행동에 대한 의지에 직면하여, 그들 사이의 긴장은 공동 행위자와 그리고 물질적 세계들과 영적 존재들의 중앙우주에게 실존함을 주었다.

실체가 개인적 존재와 비(非)개인적 존재로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로) 차별화될 때, 그 어떤 본질성 분별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비(非)개인적인 “신(神)”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神)의 활동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물질적 반향들은 신(神)이라고 불릴 수 없다. 신(神)은 신(神)이 아닌 많은 것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신(神)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사 사람이 그러한 용어를 언젠가 가능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식되는 것도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어떤 존재 또는 살아있는 실존 개체에도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자가 아니다. 개인성과 마음-영 관계들은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원형들은 그렇지 않다. 원형들은 결코 반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복제—재생산하는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원형들의 절대이다; 하보나는 실체성 안에서 이들 잠재들의 전시이다.

하느님의 주거지는 중앙이며 영원하고, 영화로 우며 이상(理想)이다. 그의 집은 모든 우주 본부 세계들을 향한 아름다운 원형들이다; 그의 즉각적인 내주인 중앙우주는, 그들의 이상, 조직 그리고 궁극적 운명에서 모든 우주들을 위한 원형들이다.

9. THE UNIQUENESS OF PARADISE

11:9.1 (126.6) Paradise is unique in that it is the realm of primal origin and the final goal of destiny for all spirit personalities. Although it is true that not all of the lower spirit beings of the local universes are immediately destined to Paradise, Paradise still remains the goal of desire for all supermaterial personalities.

11:9.2 (126.7) Paradise is the geographic center of infinity; it is not a part of universal creation, not even a real part of the eternal Havona universe. We commonly refer to the central Isle as belonging to the divine universe, but it really does not. Paradise is an eternal and exclusive existence.

11:9.3 (127.1) In the eternity of the past, when the Universal Father gave infinite personality expression of his spirit self in the being of the Eternal Son, simultaneously he revealed the infinity potential of his nonpersonal self as Paradise. Nonpersonal and nonspiritual Paradise appears to have been the inevitable repercussion to the Father's will and act which eternalized the Original Son. Thus did the Father project reality in two actual phases —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the spiritual and the nonspiritual. The tension between them, in the face of will to action by the Father and the Son, gave existence to the Conjoint Actor and the central universe of material worlds and spiritual beings.

11:9.4 (127.2) When reality is differentiated into the personal and the nonpersonal (Eternal Son and Paradise), it is hardly proper to call that which is nonpersonal “Deity” unless somehow qualified. The energy and material repercussions of the acts of Deity could hardly be called Deity. Deity may cause much that is not Deity, and Paradise is not Deity; neither is it conscious as mortal man could ever possibly understand such a term.

11:9.5 (127.3) Paradise is not ancestral to any being or living entity; it is not a creator. Personality and mind-spirit relationships are *transmissible*, but pattern is not. Patterns are never reflections; they are duplications — reproductions.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Havona is an exhibit of these potentials in actuality.

11:9.6 (127.4) God's residence is central and eternal, glorious and ideal. His home is the beautiful pattern for all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is immediate indwelling is the pattern for all universes in their ideals,

파라다이스는 모든 개인성 활동들의 우주적 본부이고 모든 기체-공간과 에너지 현시활동의 근원-중심이다. 존재해 왔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이, 영원한 하느님들의 이 중앙 거주 장소로부터 도래해 왔거나 지금 오고 있거나 또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에너지들의 근원이며 모든 개인성들이 시원적으로 기원된 곳이다.

무엇보다도, 필사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파라다이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아버지의 이 완전한 거주지가, 하느님의 필사자 물질적 아들들,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속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불멸 혼의 실제로 그리고 멀리-떨어진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생애를 지지해 온 하느님을-아는 모든 필사자는 신성 추구와 완전성 달성의 길고 긴 파라다이스 길을 이미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낮은 공간 구체들로부터 상승해 오면서, 그러한 한 동물-기원 존재가, 무수한 자들이 지금 하듯이,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러한 어떤 성취는 최극위의 한계위에서 테두리를 이루는 영적 변환의 실체를 나타낸다.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이렇게 기능하라고 임명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organization, and ultimate destiny.

11:9.7 (127.5) Paradise is the universal headquarters of all personality activities and the source-center of all force-space and energy manifestations. Everything which has been, now is, or is yet to be, has come, now comes, or will come forth from this central abiding place of the eternal Gods. Paradise is the center of all creation, the source of all energies, and the place of primal origin of all personalities.

11:9.8 (127.6) After all, to mortal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eternal Paradise is the fact that this perfect abode of the Universal Father is the real and far-distant destiny of the immortal souls of the mortal and material sons of God,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Every God-knowing mortal who has espoused the career of doing the Father's will has already embarked upon the long, long Paradise trail of divinity pursuit and perfection attainment. And when such an animal-origin being does stand, as countless numbers now do, before the Gods on Paradise, having ascended from the lowly spheres of space, such an achievement represents the reality of a spiritual transformation bordering on the limits of supremacy.

11:9.9 (127.7)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12 편 우주들의 우주

⇨ 011

유랜시아 책

013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2 편 우주들의 우주

섹션

소개

제 1 장. 주(主)우주 의 공간 차원

제 2 장.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

제 3 장. 우주적 중력

제 4 장. 공간과 운동

제 5 장. 공간과 시간

제 6 장. 우주적 전반적-통제

제 7 장. 부분과 전체

제 8 장. 물질, 마음, 그리고 영

제 9 장. 개인적 실체들

소개

우주 아버지의 멀리 퍼지는 창조의 광대함은 유한한 상상력에서의 파악을 철저히 넘어서나; 주(主)우주 의 거대함은 심지어 나와 같은 계층의 존재의 개념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우주들의 계획과 배열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들의 물리적 조직과 놀라운 관리-행정의 무언가를 알 수 있다; 너희는 시간의 일곱 초우주들과 영원한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지능 존재들의 다양한 집단들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원한 잠재에 있어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물질적 창조를 무한한 것으로 상상하지만, 전체 물질적 창조를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너희 유한 마음들에게는 비교적 제한이 없는, 실질적으로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물리적 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별이 빛나는 영역들을 관찰한 결과, 우리는 무한한

PAPER 12

THE UNIVERSE OF 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2.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3. Universal Gravity

4. Space and Motion

5. Space and Time

6. Universal Overcontrol

7. The Part and the Whole

8. Matter, Mind, and Spirit

9. Personal Realities

INTRODUCTION

12:0.1 (128.1) THE immensity of the far-flung cre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utterly beyond the grasp of finite imagination; the enormousness of the master universe staggers the concept of even my order of being. But the mortal mind can be taught much about the plan and arrangement of the universes; you can know something of their physical organization and marvelous administration; you may learn much about the various groups of intelligent beings who inhabit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12:0.2 (128.2) In principle, that is, in eternal potential, we conceive of material creation as being infinite because the Universal Father is actually infinite, but as we study and observe the total material creation, we know that at any given moment in time it is limited, although to your finite minds it is comparatively limitless, virtually boundless.

12:0.3 (128.3) We are convinced, from the study of physical law and from the observation of the starry

창조자가 조화우주 표현의 최종에서 아직 현시되지 않고, 무한자의 조화우주 잠재 대부분이 아직도 자아-억제되어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창조된 존재들에게, 주(主)우주는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완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물질적 창조에는 아직도 물리적 한계들이 있고, 영원한 목적에 대한 체험적 계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 1 장. 주(主)우주 의 공간 차원

우주들의 우주는 무한 평면, 끝이 없는 입방체, 끝이 없는 원형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규모를 갖고 있다. 물리적 조직 및 관리-행정의 법칙들은 기세-에너지와 물질-힘의 거대한 전체 집단이 궁극적으로 어떤 공간 단위로, 조직되고 조화-협동된 전체로서 기능함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물질적 창조의 관찰 가능한 행실은 분명하게 제한된 물리적 우주의 증거가 된다. 원형의 그리고 한계가 정해진 우주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은, 기초 에너지의 모든 형태들이 파라다이스 중력의 끊임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끌어당김에 복종하여 주(主)우주 의 공간 차원들의 곡선 경로 둘레를 언제나 지나 휘돌아 회전한다는, 잘 알려진 사실로, 우리에게 제공된다.

주(主)우주 의 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은 펼쳐진 공간의—전체 창조,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되거나 아직 조직되어지며 거주하게 될—주요 부분들을 구성한다. 만약에 주(主)우주 가 상대적으로 정지된 지대들과 교대하면서, 움직임에 대해 축소된 저항의 일련의 타원 공간 차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조화우주 에너지들 중 일부가 무한한 거리로 힘차게 튀어나오는, 궤도가 없는 공간 속으로 직선 경로로 튀어나오는 것이 관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기세, 에너지, 또는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것들은 항상 휘돌아 회전하며, 커다란 공간 순환회로들의 궤도에서 앞을 향하여 항상 회전한다.

충만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을 향해 진행할 때, 주(主)우주는 여섯 동심원 타원들, 중앙 섬을 도는 공간 차원들 안에서 실존한다:

1. 중앙우주—하보나.
2. 일곱 초우주.
3. 제1 외부 공간 차원.
4. 제2 외부 공간 차원.
5. 제3 외부 공간 차원.
6. 제4 및 최-외부 공간 차원.

realms, that the infinite Creator is not yet manifest in finality of cosmic expression, that much of the cosmic potential of the Infinite is still self-contained and unrevealed. To created beings the master universe might appear to be almost infinite, but it is far from finished; there are still physical limits to the material creation, and the experiential revelation of the eternal purpose is still in progress.

1.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12.1.1 (128.4)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not an infinite plane, a boundless cube, nor a limitless circle; it certainly has dimensions. The laws of physica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prove conclusively that the whole vast aggregation of force-energy and matter-power functions ultimately as a space unit, as an organized and co-ordinated whole. The observable behavior of the material creation constitutes evidence of a physical universe of definite limits. The final proof of both a circular and delimited universe is afforded by the, to us, well-known fact that all forms of basic energy ever swing around the curved path of th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in obedience to the incessant and absolute pull of Paradise gravity.

12.1.2 (128.5) The successive space levels of the master universe constitute the major divisions of pervaded space — total creation, organized and partially inhabited or yet to be organized and inhabited. If the master universe were not a series of elliptical space levels of lessened resistance to motion, alternating with zones of relative quiescence, we conceive that some of the cosmic energies would be observed to shoot off on an infinite range, off on a straight-line path into trackless space; but we never find force, energy, or matter thus behaving; ever they whirl, always swinging onward in the tracks of the great space circuits.

12.1.3 (129.1) Proceeding outward from Paradise through the horizontal extension of pervaded space, the master universe is existent in six concentric ellipses, the space levels encircling the central Isle:

12.1.4 (129.2) 1. The Central Universe — Havona.

12.1.5 (129.3) 2. The Seven Superuniverses.

12.1.6 (129.4) 3.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2.1.7 (129.5) 4. The Second Outer Space Level.

12.1.8 (129.6) 5. The Third Outer Space Level.

12.1.9 (129.7) 6.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중앙우주인 하보나는, 시간 창조가 아니며; 그것은 영원한 실존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이 우주는 숭고한 완전성을 갖는 10억 개의 구체들로 구성되며 거대한 암흑중력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보나의 중심에는, 고정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파라다이스 섬이 있는데, 21개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우주 둘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질량들 때문에, 이 중앙 창조의 질량 내용물은 대우주의 일곱 부분들 전체의 알려진 총 질량을 훨씬 뛰어넘는다.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영원한 섬을 돌고 있는 영원한 우주이며, 주(主)우주 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핵을 이루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 전체와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들은 확립된 궤도들 안에서 파라다이스 위성들과 하보나 구체들의 거대한 중앙 집합체 둘레를 회전한다.

일곱 초우주들은 시원적인 물리적 조직들이 아니며; 그것들의 경계선들은 어디에서도 성운 가족을 나누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최초 창조 단위인 지역우주를 교차하지 않는다. 각 초우주는 단지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거주민이 사는 하보나-이후 창조의 약 7분의 1이 모여 있는 지리적 공간 군(群)이며, 각각은 포용된 지역우주의 숫자에 있어서 그리고 둘러싸인 공간에 있어서 거의 똑같다. 너희 지역우주인 네바돈은,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에서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것들 중 하나이다.

대우주는 현재 조직되고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이다. 그것은, 중앙 창조의 영원한 구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주민이 사는 약 7조 개의 행성들의 총체적인 진화 잠재를 가진, 일곱 초우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이 추정치는 고안건축의 행정-관리적 구체들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직되지 않은 우주들의 밖에 있는 집단들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주의 들쭉날쭉한 현 경계선, 그것의 불규칙하고 미(未)완결된 가장자리는, 천문상의 전체 계획의 매우 안정되지 않은 상태와 함께, 별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일곱 초우주들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안으로부터,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에서 밖을 향하여 움직일 때, 우리는 결국에는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의 외부 한계점에 도달하며; 우리는 대우주의 외부 한계들에 도달한다. 그리고 너희 지역우주가 그 사건 많은 실존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그러한 장엄한 창조의 멀리 떨어진 구역에 있는 이 외부 경계선 근처이다.

외부 공간 차원. 공간 안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민이 사는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기체와 물질화 되는 에너지들의 광대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순환회로들

12.1.10 (129.8) *Havona*, the central universe, is not a time creation; it is an eternal existence. This never-beginning, never-ending universe consists of one billion spheres of sublime perfection and is surrounded by the enormous dark gravity bodies. At the center of Havona is the stationary and absolutely stabilized Isle of Paradise, surrounded by its twenty-one satellites. Owing to the enormous encircling masses of the dark gravity bodies about the fringe of the central universe, the mass content of this central creation is far in excess of the total known mass of all seven sectors of the grand universe.

12.1.11 (129.9) *The Paradise-Havona System*, the eternal universe encircling the eternal Isle, constitutes the perfect and eternal nucleus of the master universe;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and all regions of outer space revolve in established orbits around the gigantic central aggregation of the Paradise satellites and the Havona spheres.

12.1.12 (129.10)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not primary physical organizations; nowhere do their boundaries divide a nebular family, neither do they cross a local universe, a prime creative unit. Each superuniverse is simply a geographic space clustering of approximately one seventh of the organized and partially inhabited post-Havona creation, and each is about equal in the number of local universes embraced and in the space encompassed. *Nebadon*, your local universe, is one of the newer creations in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12.1.13 (129.11) *The Grand Universe* is the present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t consis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ith an aggregate evolutionary potential of around seven trillion inhabited planets, not to mention the eternal spheres of the central creation. But this tentative estimate takes no account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spheres, neither does it include the outlying groups of unorganized universes. The present ragged edge of the grand universe, its uneven and unfinished periphery, together with the tremendously unsettled condition of the whole astronomical plot, suggests to our star students that eve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as yet, uncompleted. As we move from within, from the divine center outward in any one direction, we do, eventually, come to the outer limits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we come to the outer limits of the grand universe. And it is near this outer border, in a far-off corner of such a magnificent creation, that your local universe has its eventful existence.

12.1.14 (129.12) *The Outer Space Levels*. Far out in space, at an enormous distance from the seven inhabited superuniverses, there are assembling vast and unbelievably stupendous circuits of force

이 집합되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에너지 순환 회로들과 기세 활동의 이 거대한 외부 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 지대가 있으며, 폭에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평균들은 약 400,000광년이다. 이 공간 지대들은 별 먼지—우주안개—가 없다. 이 현상들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돌고 있는 비교적 고요한 이 지대 안에 존재하는 공간-기세들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우주 가장자리를 약 500,000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2,500만 광년 이상인 부피와 밀도가 증가하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 활동의 지대가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다. 에너지화 하는 기세들의 이 거대한 회전들은, 알려지고 조직되어 있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전체를 돌고 있는 조화우주 활동의 연속적 띠인,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 거대한 활동들이 이 지역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버사 물리학자들이 이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 있는 현상의 가장 외부 범위들을 5,000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기세 현시활동들의 초기증거를 탐지했기 때문이다. 이 활동들은 틀림없이 주(主)우주 의 제2 외부 공간의 물질적 창조계의 조직을 예언한다.

중앙우주는 영원의 창조계이다; 일곱 초우주들은 시간의 창조계들이다; 4개의 외부 공간 차원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결국 생겨나는-진화로 틀림없이 운명되어있다. 그리고 무한자가 무한성의 개요를 충만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확대가 가능하고, 결코 끝이 없는 무한성의 우주인, 제4 그리고 가장 외부 공간 차원을 넘어서는 부가적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창조를 가정한다. 이론상으로 우리는 창조자의 무한성이나 창조의 잠재적 무한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관리-운영되고 있듯이, 우리는 열린 공간에 의해 그것의 외부 경계에 분명하게 한정되고 제한된 것처럼 주(主)우주 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nd materializing energies. Between the energy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is gigantic outer belt of force activity, there is a space zone of comparative quiet, which varies in width but averages about four hundred thousand light-years. These space zones are free from star dust — cosmic fog. Our students of these phenomena are in doubt as to the exact status of the space-forces existing in this zone of relative quiet which encircles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about one-half million light-years beyond the periphery of the present grand universe we observe the beginnings of a zone of an unbelievable energy action which increases in volume and intensity for over twenty-five million light-years. These tremendous wheels of energizing forces are situated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a continuous belt of cosmic activity encircling the whole of the known,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12:1.15 (130.1) Still greater activities are taking place beyond these regions, for the Uversa physicists have detected early evidence of force manifestations more than fifty million light-years beyond the outermost ranges of the phenomena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These activities undoubtedly presage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creations of the second outer space level of the master universe.

12:1.16 (130.2) The central universe is the creation of eternity;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the creations of time; the four outer space levels are undoubtedly destined to eventuate-evolve the ultimacy of creation. And there are those who maintain that the Infinite can never attain full expression short of infinity; and therefore do they postulate an additional and unrevealed creation beyond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a possible ever-expanding, never-ending universe of infinity. In theory we do not know how to limit either the infinity of the Creator or the potential infinity of creation, but as it exists and is administered, we regard the master universe as having limitations, as being definitely delimited and bounded on its outer margins by open space.

제 2 장.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점점 더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신비한 펼쳐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 우주들의 놀라운 진화를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불가사의한 계획들의 막강한 작업현정을 응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이 외부 지역들의 현재 특징인 광대한 에너지 현시활동들에 두루 여기저기에서 어떤 파라다이스 개인성 영향들의 현존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2.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2.1 (130.3) When Urantia astronomers peer through their increasingly powerful telescopes into the mysterious stretches of outer space and there behold the amazing evolution of almost countless physical universes, they should realize that they are gazing upon the mighty outworking of the unsearchabl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rue, we do possess evidences which are suggestive of the presence of certain Paradise personality influences here and there throughout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일곱 초우주들의 외부 경계들 너머 확장하는 공간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분별볼가 절대자의 권역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육안만으로는 오르본톤 초우주의 경계들 밖에서 단지 두 세 성운밖에 볼 수 없지만, 너희의 망원경은 형성 과정에 있는 수백만의 이 물리적 우주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지금-현재 망원경의 탐색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별 영역들 대부분은 오르본톤 안에 있지만, 사진 기법을 이용하는 보다 큰 망원경은 대우주의 경계들을 훨씬 넘어서 외부 공간의 권역들을 들어가며, 그곳에는 이야기되지 않은 우주들이 조직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현재 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다른 수백만의 우주들이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망원경들이 외부 공간의 머나먼 펼침에서 적어도 3억 7,5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은하계들이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의 경탄하는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더욱 강력한 이 망원경들은 전에 외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믿었던 많은 섬 우주들이 실제적으로는 오르본톤에 속한 은하계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일곱 초우주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각각의 가장자리는 점점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성운들이 끊임없이 안정을 찾고 조직되고 있다; 유란시아인 천문학자들이 가외(加外)은하계로 간주하는 그 성운의 일부는 실제적으로는 오르본톤의 바깥 경계선 가까이에 있고 우리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유버사 별 연구가들은 현재 거주민이 사는 창조를 여러 외부 우주들의 동심원 고리들로서 완벽하게 도는 일련의 별들과 행성 군(群)들의 조상들에 의해 대우주가 둘러싸여 있음을 관찰한다. 유버사의 물리학자들은 외부에 이, 미지의 지역들의 에너지와 물질이 이미 일곱 초우주들 전체의 물질적 질량 및 에너지 충전량의 여러 배에 달하고 있다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 외부 공간 차원들에서 조화우주 기세의 형태변형이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세들이 현재 대우주를 활성화시키는 그 물리적 에너지들의 근원임도 알고 있다. 아무튼 오르본톤 힘 지도자들은 멀리 떨어진 이 영역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동들은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의 힘 순환회로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외부 공간의 이 거대한 현상의 의의(意義)를 거의 알지 못한다. 미래의 더 큰 창조가 형성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것의 광대함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의

the vast energy manifestations now characteristic of these outer regions, but from the larger viewpoint the space regions extending beyond the outer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constituting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2.2 (130.4) Although the unaided human eye can see only two or three nebulae outside the bord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your telescopes literally reveal millions upon millions of these physical universes in process of formation. Most of the starry realms visually exposed to the search of your present-day telescopes are in Orvonton, but with photographic technique the larger telescopes penetrate far beyond the borders of the grand universe into the domains of outer space, where untold universes are in process of organization. And there are yet other millions of universes beyond the range of your present instruments.

12:2.3 (130.5) In the not-distant future, new telescopes will reveal to the wondering gaze of Urantian astronomers no less than 375 million new galaxies in the remote stretches of outer space. At the same time these more powerful telescopes will disclose that many island universes formerly believed to be in outer space are really a part of the galactic system of Orvonto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still growing; the periphery of each is gradually expanding; new nebulae are constantly being stabilized and organized; and some of the nebulae which Urantian astronomers regard as extragalactic are actually on the fringe of Orvonton and are traveling along with us.

12:2.4 (131.1) The Uversa star students observe that the grand universe is surrounded by the ancestors of a series of starry and planetary clusters which completely encircle the present inhabited creation as concentric rings of outer universes upon universes. The physicists of Uversa calculate that the energy and matter of these outer and uncharted regions already equal many times the total material mass and energy charge embraced in all seven superuniverses. We are informed that the metamorphosis of cosmic force in these outer space levels is a fun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We also know that these forces are ancestral to those physical energies which at present activate the grand universe. The Orvonton power directors, however, have nothing to do with these far-distant realms, neither are the energy movements therein discernibly connected with the power circuits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12:2.5 (131.2) We know very little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tremendous phenomena of outer space. A greater creation of the future is in process of formation. We can observe its immensity, we can

장엄한 규모를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유란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이 영역들을 약간 더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 계층의 물질적 존재들도, 천사들 또는 다른 영 창조체들도, 성운과 태양들과 행성들의 이 외부 고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이 권역은 초우주 정부의 지배와 관리-행정 밖에 있다.

새로운 형태의 창조, 집합되는 최종자 무리단의 미래 활동들의 무대가 되는 우주들의 계층이 진행되고 있음이 오르본톤 전체에서 믿어지고 있다; 만일 우리들의 추측이 맞는다면, 끝없는 과거가 너희 선조들과 선배들을 위해 유지해 왔던 동일한 재미있는 광경들을 끝없는 미래가 너희 모두를 위해 유지할 것이다.

제 3 장. 우주적 중력

모든 형태의 기세-에너지-물질적, 마음적, 또는 영적—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현존들인, 지배들에 똑같이 종속된다. 개인성 역시 중력에 대해—아버지의 독점적 순환회로에 대해—응답한다; 이 순환회로가 아버지에게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다른 순환회로들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는 무한하고 주(主)우주 안에서 네 절대-중력 순환회로들에 두루 활동한다:

1.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중력.
2.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
3.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
4. 파라다이스 섬의 조화우주 중력.

이 네 순환회로들은 하부 파라다이스 기세 중심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그것들은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 순환회로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절대 현존 순환회로들이며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 독립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중력 연구자 단체들에 의해 최근 수천 년 동안 유버사에서 만들어진 일정한 관찰들을 기록하는 일은 흥미롭다. 이 노련한 일꾼 집단은 주(主)우주 의 상이한 중력 체계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물리적 중력. 대우주의 전체 물리적-중력 용량의 합계에 대한 추정치를 공식화함으로써, 그들은 현재 작동하는 절대 중력 현존의 추정 합계와 이 발견을 열심히 비교하였다. 이 계산들은 대우주에서의 전체 중력 활동이 파라다이스의 추정된 중력 잡아당김의 매우 작은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주 물질의 기초 물리적 단위들의 중력 응답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이 검사관들은 중앙우주와 주변의 일곱 초우주들이 현재 파라다이스 절

discern its extent and sense its majestic dimensions, but otherwise we know little more about these realms than do the astronomers of Urantia. As far as we know, no material beings on the order of humans, no angels or other spirit creatures, exist in this outer ring of nebulae, suns, and planets. This distant domain is beyond the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2:2.6 (131.3) Throughout Orvonton it is believed that a new type of creation is in process, an order of universes destined to become the scene of the future activities of the assembling Corps of the Finality; and if our conjectures are correct, then the endless future may hold for all of you the same enthralling spectacles that the endless past has held for your seniors and predecessors.

3. UNIVERSAL GRAVITY

12:3.1 (131.4) All forms of force-energy — material, mindal, or spiritual — are alike subject to those grasps, those universal presences, which we call gravity. Personality also is responsive to gravity — to the Father's exclusive circuit; but though this circuit is exclusive to the Father, he is not excluded from the other circuits; the Universal Father is infinite and acts over all four absolute-gravity circuits in the master universe:

12:3.2 (131.5) 1. The Personality Gravity of the Universal Father.

12:3.3 (131.6) 2.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12:3.4 (131.7) 3.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12:3.5 (131.8) 4. The Cosmic Gravity of the Isle of Paradise.

12:3.6 (131.9) These four circuits are not related to the nether Paradise force center; they are neither force, energy, nor power circuits. They are absolute *presence* circuits and like God ar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12:3.7 (132.1) In this connection it is interesting to record certain observations made on Uversa during recent millenniums by the corps of gravity researchers. This expert group of workers has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regarding the different gravity systems of the master universe:

12:3.8 (132.2) 1. *Physical Gravity.* Having formulated an estimate of the summation of the entire physical-gravity capacity of the grand universe, they have laboriously effected a comparison of this finding with the estimated total of absolute gravity presence now operative. These calculations indicate that the total gravity action on the grand universe is a very small part of the estimated gravity pull of Paradise, computed on the basis of

대-중력 장악의 실제 기능 중 약 5% 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계산할 때, 현재 파라다이스 섬의 실제적인 우주-중력 활동의 약 95%는 지금 조직되어 있는 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질적 체계들을 통제하는 일에 종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계산들은 모두 절대 중력을 참조한 것이다; 직선 중력은 오직 실제 파라다이스 중력을 알아야만 그것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현상이다.

2. 영적 중력. 이 연구자들은 비교적인 추정과 계산이라는 동일한 기법에 의해 영 중력의 현재 반응 용량을 탐구해 왔으며, 단독 메신저들 및 다른 영 개인성들의 협조로,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실제적인 영 중력의 합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영 중력의 현재 총합이라고 그들이 가정한 것과 대우주에 있는 영 중력의 실제적 및 기능적 현존에서 동일한 값을 그들이 발견하였다는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전체성의 이론에 입각하여 계산된, 영원한 아들의 실제적인 현재의 전체 영 중력은 대우주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다. 만일 이 발견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외부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들이 지금은 전적으로 비(非)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부여된 존재들이 그들의 물리적 실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 이 광대한 에너지 현시활동들에 관하여 거의 또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를 그것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것이다.

3. 마음 중력. 상대적인 계산의 이 동일한 원칙들에 의해 이 숙련자들은 마음-중력 현존과 응답의 문제에 도전해 왔다. 비록 힘 지도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안에서 발견된 마음 유형이 마음-중력 추정의 기초 단위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교란 요소임이 증명되었더라도, 정신활동의 세 가지 물질적 그리고 세 가지 영적 유형들을 평균화함으로써 추정의 마음 단위가 도달되었다. 이 전체성의 이론에 따른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재 마음-중력 기능의 용량에 대한 추정에 방해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경우의 발견들이 비록 물질적 그리고 영 중력의 추정치의 경우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들은 매우 교훈적이고, 심지어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조사자들은 공동 행위자의 지적 당김에 대한 마음-중력 응답의 약 85%가 존재하는 대우주에서 기원된다고 추론한다. 이것은 마음 활동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들에 두루 지금 진보하고 있는 관찰 가능한 물질적 활동들과 관련하여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것이다. 이 추정이 아마도 정확한 것과는 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대

the gravity response of basic physical units of universe matter. These investigators reach the amazing conclusion that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urrounding seven superuniverses are at the present time making use of only about five per cent of the active functioning of the Paradise absolute-gravity grasp. In other words: At the present moment about ninety-five per cent of the active cosmic-gravity action of the Isle of Paradise, computed on this totality theory, is engaged in controlling material systems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s. These calculations all refer to absolute gravity; linear gravity is an interactive phenomenon which can be computed only by knowing the actual Paradise gravity.

12:3.9 (132:3) 2. *Spiritual Gravity*. By the same technique of comparative estimation and calculation these researchers have explored the present reaction capacity of spirit gravity and, with the co-operation of Solitary Messengers and other spirit personalities, have arrived at the summation of the active spirit gravity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And it is most instructive to note that they find about the same value for the actual and functional presence of spirit gravity in the grand universe that they postulate for the present total of active spirit gravity. In other words: At the present time practically the entir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computed on this theory of totality, is observable as functioning in the grand universe. If these findings are dependable, we may conclude that the universes now evolving in outer space are at the present time wholly nonspiritual. And if this is true, it would satisfactorily explain why spirit-endowed beings are in possession of little or no information about these vast energy manifestations aside from knowing the fact of their physical existence.

12:3.10 (132:4) 3. *Mind Gravity*. By these same principles of comparative computation these experts have attacked the problem of mind-gravity presence and response. The mind unit of estimation was arrived at by averaging three material and three spiritual types of mentality, although the type of mind found in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proved to be a disturbing factor in the effort to arrive at a basic unit for mind-gravity estimation. There was little to impede the estimation of the present capac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for mind-gravity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theory of totality. Although the findings in this instance are not so conclusive as in the estimates of physical and spirit gravity, they are, comparatively considered, very instructive, even intriguing. These investigators deduce that about eighty-five per cent of the mind-gravity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drawing of the Conjoint Actor takes origin in the existing grand universe. This would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mind activities are involved in

우주의 현 외부 한계선을 넘어서는 우주 차원들 안에서 지능적 기체조직자들이 지금 우주 진화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허용한다. 가정된 지능의 본질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영-중력 응답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산들은 기껏해야 가정된 법칙들을 토대로 예측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법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영 존재들이 외부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집합적인 현존은 그러한 거대한 측정치들을 포함하는 계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개인성 중력은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순환 회로는 인식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질적 또는 양적 실체들을 측정할 수 없다.

connection with the observable physical activities now in progress throughout the realms of outer space. While this estimate is probably far from accurate, it accords, in principle, with our belief that intelligent force organizers are at present directing universe evolution in the space levels beyond the present outer limits of the grand universe. Whatever the nature of this postulated intelligence, it is apparently not spirit-gravity responsive.

12.3.11 (133.1) But all these computations are at best estimates based on assumed laws. We think they are fairly reliable. Even if a few spirit beings were located in outer space, their collective presence would not markedly influence calculations involving such enormous measurements.

12.3.12 (133.2) *Personality Gravity* is noncomputable. We recognize the circuit, but we cannot measure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realities responsive thereto.

제 4 장. 공간과 운동

조화우주 에너지의 모든 단위들은 근본적인 회전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에 관여하는 한편, 우주 궤도 돌레를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공간의 우주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체계들 및 세계들은 모두 회전하는 구체들이며, 주(主)우주 공간 차원들의 끝없는 순환회로들을 따라 움직인다. 중력의 중심인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하보나의 정중앙을 제외하면 주(主)우주 전체에서 고정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

분별불가 절대자는 기능적으로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이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한다. 움직임이 그 안에 고유하게 들어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움직임이 공간 안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며; 심지어 공간의 움직임들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분별불가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 너머 밖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기체-에너지 변형의 거대한 활동들은 실제로 누가 또는 무엇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움직임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갖고 있다:

1.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2. 만일 공동 행위자가 공간의 움직임들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3. 우주 절대자가 최초의 동작을 기원시키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에 의해 기원된 모든 긴장들을 균등하게 하고 통제한다.

외부 공간에서 기체조직자들은 현재 별의 진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우주 소용돌이들의 생성을

4. SPACE AND MOTION

12.4.1 (133.3) All units of cosmic energy are in primary revolution, are engaged in the execution of their mission, while swinging around the universal orbit. The universes of space and their component systems and worlds are all revolving spheres, moving along the endless circuits of the master universe space levels. Absolutely nothing is stationary in all the master universe except the very center of Havona,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center of gravity.

12.4.2 (133.4) The Unqualified Absolute is functionally limited to space, but we are not so sure about the relation of this Absolute to motion. Is motion inherent therein? We do not know. We know that motion is not inherent in space; even the motions of space are not innate. But we are not so sure about the relation of the Unqualified to motion. Who, or what, is really responsible for the gigantic activities of force-energy transmutations now in progress out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Concerning the origin of motion we have the following opinions:

12.4.3 (133.5) 1. We think the Conjoint Actor initiates motion *in* space.

12.4.4 (133.6) 2. If the Conjoint Actor produces the motions of space, we cannot prove it.

12.4.5 (133.7) 3. The Universal Absolute does not originate initial motion but does equalize and control all of the tensions originated by motion.

12.4.6 (133.8) In outer space the force organizers are apparentl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the

명백히 책임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능하는 그들의 능력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어떤 변형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왔다.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무(無)-부정적—이다; 그것은 오직 어떤 긍정적이고 비 공간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존재한다. 아무튼 공간은 실제적이다. 그것은 운동을 포함하고 제한한다. 그것 역시 움직인다. 공간의 움직임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1차 운동—공간 호흡 작용, 공간 자체의 움직임.

2. 2차 운동—연속적인 공간 차원들의 번갈아 방향이 바뀌는 휘둘러 하는 회전.

3. 상대적 운동들—그것들은 파라다이스에 비추어 기초지점으로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1차 및 2차 운동들은 절대적이며, 움직임이 없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상대성에서의 운동이다.

4. 다른 모든 운동들을 조화-협동시키도록 고안된 보상 또는 상관관계하는 움직임.

너희의 태양과 그것에 연관된 행성들의 현재 관계는, 공간에서 많은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운동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너희가 상대적으로 공간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그리고 너희의 계산들이 공간에서 밖을 나아감에 따라 주변의 별 무리들과 흐름들이 계속 증가하는 속도로 밖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천문 관찰자들에게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모든 층만 공간의 물리적 창조계의, 현재의 밖을 향한 그리고 일정한 확대를 깨닫지 못한다. 너희 자신의 지역우주(네바돈)는 밖을 향한 우주적 확대의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 전체는 주(主)우주 의 외부 지역들과 함께 20억 년 주기의 공간 호흡 작용에 참여하고 있다.

우주들이 확대하고 축소할 때, 층만 공간에서 물질적 질량들은 파라다이스 중력의 흡인력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움직인다. 창조의 물질적 질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행해진 그 작업은 공간 작업이지만 힘-에너지 작업은 아니다.

천문상의 속도들에 대한 너희의 분광기 추정치들이 너희의 초우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초우주들에 속하는 별의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제법 신뢰할 만하더라도, 외부 공간의 영역들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계산이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스펙트럼의 광선들은 다가오는 어떤 별에 의해 표준으로부터 보라색 쪽으로 옮겨지며; 마찬가지로 이 광선들은 멀어져가는 어떤 별에 의해 빨간 색 쪽으로 옮겨진다. 많은 영향들이 개재함으로써, 외부 우주들의 후퇴 속도가 매 1백만 광년마다 100 마일씩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gigantic universe wheels which are now in process of stellar evolution, but their ability so to function must have been made possible by some modification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2.4.7 (133.9) Space is, from the human viewpoint, nothing — negative; it exists only as related to something positive and nonspatial. Space is, however, real. It contains and conditions motion. It even moves. Space motions may be roughly classified as follows:

12.4.8 (133.10) 1. Primary motion — space respiration, the motion of space itself.

12.4.9 (133.11) 2. Secondary motion — the alternate directional swings of the successive space levels.

12.4.10 (133.12) 3. Relative motions — relative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evaluated with Paradise as a base point. Primary and secondary motions are absolute, motion in relation to unmoving Paradise.

12.4.11 (133.13) 4. Compensatory or correlating movement designed to co-ordinate all other motions.

12.4.12 (134.1) The present relationship of your sun and its associated planets, while disclosing many relative and absolute motions in space, tends to convey the impression to astronomic observers that you are comparatively stationary in space, and that the surrounding starry clusters and streams are engaged in outward flight at ever-increasing velocities as your calculations proceed outward in space. But such is not the case. You fail to recognize the present outward and uniform expansion of the physical creations of all pervaded space. Your own local creation (Nebadon) participates in this movement of universal outward expansion. The entire seven superuniverses participate in the two-billion-year cycles of space respiration along with the outer regions of the master universe.

12.4.13 (134.2) When the universes expand and contract, the material masses in pervaded space alternately move against and with the pull of Paradise gravity. The work that is done in moving the material energy mass of creation is *space* work but not *power-energy* work.

12.4.14 (134.3) Although your spectroscopic estimations of astronomic velocities are fairly reliable when applied to the starry realms belonging to your superuniverse and its associate superuniverses, such reckonings with reference to the realms of outer space are wholly unreliable. Spectral lines are displaced from the normal towards the violet by an approaching star; likewise these lines are displaced towards the red by a receding star. Many influences interpose to make it appear that the recessional velocity of the external

나타나게 한다. 이 계산 방법에 의해, 더욱 강력한 망원경들이 완전해짐에 따라, 멀리 있는 이 체계들이 초당 3만 마일 이상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우주의 이 부분으로부터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이 후퇴 속도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관찰에서 잘못을 포용하고 있는 각도들의 수많은 요인들 및 다른 시간-공간 장애들로부터 기인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장애들 중 가장 큰 것은 일곱 초우주들의 권역들 다음에 있는 권역들에서 외부 공간의 광대한 우주들이 대우주의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금, 이 무수한 성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는 태양들과 구체들은, 현재 중앙 창조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은 파라다이스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일곱 초우주들과 마찬가지로, 은하계들 중 2차 외부 우주 역시 파라다이스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리고 유버사의 천문 관찰자들은 시계방향 본성의 방향성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멀리 있는 공간의 제3 외부 띠에서 회전 운동들의 증거를 자신들이 포착했다고 생각한다.

우주들의 이들 연속적인 공간 진행 현상의 교대(交代) 방향들이, 우주 절대자가 가진 주(主)우주 내부 사이에 있는 우주 중력 기법, 곧 기체들의 조화-협동과 공간 긴장들의 평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도, 공간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보완자 곧 평형자이다.

제 5 장. 공간과 시간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파라다이스의 증여이지만,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간접적으로 그러하다. 시간은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마음은 순차성을 선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면, 움직임은 시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움직임에 기초를 둔 우주 시간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 호흡의 전체성은 시간 근원으로서의 그것의 지역적 가치를 파괴한다.

공간은 그것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되었다 하더라도 무한하지 않는다; 절대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분별불가 절대자에 의해 충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의 절대적 한계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의 절대성이 곧 영원임은 알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시간-공간 창조계,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만 분리될 수 없다. 비(非)시간적 공간(시간이 없는 공간)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진

universes increases at the rate of more than one hundred miles a second for every million light-years increase in distance. By this method of reckoning, subsequent to the perfection of more powerful telescopes, it will appear that these far-distant systems are in flight from this part of the universe at the unbelievable rate of more than thirty thousand miles a second. But this apparent speed of recession is not real; it results from numerous factors of error embracing angles of observation and other time-space distortions.

^{12.4.15 (134.4)} But the greatest of all such distortions arises because the vast universes of outer space, in the realms next to the domai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em to be revolving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of the grand universe. That is, these myriads of nebulae and their accompanying suns and spheres are at the present time revolving clockwise about the central creation. The seven superuniverses revolve about Paradise in a counterclockwise direction. It appears that the second outer universe of galaxies, like the seven superuniverses, revolves counterclockwise about Paradise. And the astronomic observers of Uversa think they detect evidence of revolutionary movements in a third outer belt of far-distant space which are beginning to exhibit directional tendencies of a clockwise nature.

^{12.4.16 (134.5)} It is probable that these alternate directions of successive space processions of the universe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intramaster universe gravity technique of the Universal Absolute, which consists of a co-ordination of forces and an equalization of space tensions. Motion as well as space is a complement or equilibrant of gravity.

5. SPACE AND TIME

^{12.5.1 (134.6)} Like space, time is a bestowal of Paradise, but not in the same sense, only indirectly. Time comes by virtue of motion and because mind is inherently aware of sequentiality. From a practical viewpoint, motion is essential to time, but there is no universal time unit based on motion except in so far as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is arbitrarily so recognized. The totality of space respiration destroys its local value as a time source.

^{12.5.2 (135.1)} Space is not infinite, even though it takes origin from Paradise; not absolute, for it is pervaded by the Unqualified Absolute. We do not know the absolute limits of space, but we do know that the absolute of time is eternity.

^{12.5.3 (135.2)} Time and space are inseparable only in the time-space creations, the seven superuniverses. Nontemporal space (space

정으로 비(非)시간적 장소는 오직 파라다이스 지역뿐이다. 비(非)공간적 시간(공간이 없는 시간)은 기능에서의 파라다이스 차원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파라다이스와 맞닿아 있고 충만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구분시키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중앙-공간 지대들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향한 변환 지대들인데, 그래서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이 이 변환 동안 무의식이 되는 필요성이 생기며, 이때의 이 변환은 파라다이스 시민권으로 정점을 이룰 때까지 이른다. 시간-의식 방문자들은 그러한 잠을 자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시간의 창조체로 남아 있다.

시간에 대한 관계들은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시간에 대한 인식은 존재할 수 있다. 순차성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에도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 마음의 선천적인 본성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공간-엄매임보다 덜 시간-엄매임이다. 심지어는 육신으로서 이 땅의 생애 동안에도, 사람의 마음이 엄밀하게 공간-엄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인간 상상력은 비교적 시간과 무관하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유전적으로 마음의 본질특성은 아니다.

다른 세 차원의 시간 인식이 있다:

1. 마음으로 인식된 시간—순차, 동작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간에 대한 감각.

2. 영으로 인식된 시간—하느님을 향한 움직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점증하는 신성의 차원들을 향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

3. 개인성은 실체에 대한 통찰력으로부터 독특한 시간 감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존에 대한 인식과 기간에 대한 자각을 창조한다.

비(非)영적 동물들은 오직 과거를 알며 그리고 현재에서 산다. 영-내주 사람은 선견(통찰력)의 힘들을 가진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오직 앞을 내다보고 진보적인 태도들만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이다. 정적인 윤리와 전통적인 도덕성은 단지 약간 초(超)동물적이다. 금욕주의도 자아-실현의 높은 계층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것들이 역동적이고 진보적일 때 참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며 우주 실체와 함께 살아있게 된다.

인간의 개인성은 단순히 시간-과-공간 사건들의 부수물이 아니며; 인간의 개인성은 그러한 사건들의 조화우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 6 장. 우주적 전반적-통제

우주는 정지되어 있지 않다. 안정성은 관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 잡힌 에너지들, 협조적 마음들, 조화-협동하는 모론시아들, 영 전반적-통제, 그리고 개인성 통일의 산물이다. 안정성은

without time) theoretically exists, but the only truly nontemporal place is Paradise area. Nonspatial time (time without space) exists in mind of the Paradise level of function.

12:5.4 (135.3) The relatively motionless midspace zones impinging on Paradise and separating pervaded from unpervaded space are the transition zones from time to eternity, hence the necessity of Paradise pilgrims becoming unconscious during this transit when it is to culminate in Paradise citizenship. Time-conscious visitors can go to Paradise without thus sleeping, but they remain creatures of time.

12:5.5 (135.4) Relationships to time do not exist without motion in space, but consciousness of time does. Sequentiality can consciosize time even in the absence of motion. Man's mind is less time-bound than space-bound because of the inherent nature of mind. Even during the days of the earth life in the flesh, though man's mind is rigidly space-bound, the creative human imagination is comparatively time free. But time itself is not genetically a quality of mind.

12:5.6 (135.5) There are three different levels of time cognizance:

12:5.7 (135.6) 1. Mind-perceived time — consciousness of sequence, motion, and a sense of duration.

12:5.8 (135.7) 2. Spirit-perceived time — insight into motion Godward and the awareness of the motion of ascent to levels of increasing divinity.

12:5.9 (135.8) 3. Personality creates a unique time sense out of insight into Reality plus a consciousness of presence and an awareness of duration.

12:5.10 (135.9) Unspiritual animals know only the past and live in the present. Spirit-indwelt man has powers of prevision (insight); he may visualize the future. Only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attitudes are personally real. Static ethics and traditional morality are just slightly superanimal. Nor is stoicism a high order of self-realization. Ethics and morals become truly human when they are dynamic and progressive, alive with universe reality.

12:5.11 (135.10) The human personality is not merely a concomitant of time-and-space events; the human personality can also act as the cosmic cause of such events.

6. UNIVERSAL OVERCONTROL

12:6.1 (135.11) The universe is nonstatic. Stability is not the result of inertia but rather the product of balanced energies, co-operative minds, co-ordinated morontias, spirit overcontrol, and

전적으로 그리고 항상 신성에 비례한다.

주(主)우주 의 물리적 통제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가 파라다이스 섬을 통하여 우선권과 시원성을 행사한다; 하느님은 우주의 영적 관리-행정에 있어서 영원한 아들의 개인으로 절대적이다. 마음의 권역들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공동 행위자 안에서 조화-협동적으로 기능한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은, 조화우주 마음의 그의 장악의 절대성 달성에 의해 그리고 그의 선천적이고 우주적인 물리적-및 영적-중력 보완의 실행에 의해, 병합하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과 조직들의 평형과 조화-협동의 유지를 돕는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 현상은 무한한 영의 활동이다. 마음이 홀로 물질적 차원의 물리적 기체와 에너지를 영 차원의 영적 힘들과 존재들과 상호-연관할 수 있다.

우주적 현상에 대한 너희의 모든 깊은 사색에서, 너희가 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과, 그리고 그리고 개인성에 의한 그것들의 통일에서 수반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위해서, 그리고 체험적 신(神)과 절대자들의 활동 및 반응의 결과로서 생기는 예상 불가능한 현상을 위해서, 적당한 허용 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라.

우주는 양적인 또는 중력-측정 감각에서만 매우 예측 가능하다; 심지어는 1차적인 물리적 기체도 직선적 중력에 응답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궁극 우주 실체들의 더 높은 마음 의미들과 참된 영 가치들 역시 그렇지 않다. 질적으로 볼 때, 우주는 비록 그러한 많은 에너지들 또는 기체들의 조합이, 임계 관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체의 관계적-연합들, 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높게 예측할 수 없다. 물질과 마음 그리고 영이 창조 개인성에 의해 합일될 때,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 지 존재의 결정을 충만하게 예측할 수 없다.

원초(원초) 기체, 초기의 영, 그리고 다른 비(非)개인적 최종들의 모든 위상들이 어떤 비교적 안정된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법칙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한되고 고립된 상황의 현상에 처했을 때 종종 혼란케 되는 응답의 융통성 그리고 행위 정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창발하는 이들 우주 실체성들에 의해 밝혀진 예측할 수 없는 이 반응의 자유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들 알려지지 않은, 불가해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기체의 원시적 단위의 행태, 미(未)-정체성 확인의 마음 차원에서의 반응, 또는 외부 공간의 권역들에서 발달 중인 광대한 우주-이전(以前)의 우주의 현상에 속하든지 아니든지—아마도 모든 우주 창조자들의 기능보다 앞서는, 궁극자의 활동

personality unification. Stability is wholly and always proportional to divinity.

12:6.2 (135:12) In the physical control of the master universe the Universal Father exercises priority and primacy through the Isle of Paradise; God is absolute in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cosmos in the person of the Eternal Son. Concerning the domains of mind, the Father and the Son function co-ordinately in the Conjoint Actor.

12:6.3 (136:1)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ssists in the maintenance of the equilibrium and co-ordination of the combined physical and spiritual energies and organizations by the absoluteness of his grasp of the cosmic mind and by the exercise of his inherent and universal physical- and spiritual-gravity complements. Whenever and wherever there occurs a liais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such a mind phenomenon is an act of the Infinite Spirit. Mind alone can interassociate the physical forces and energies of the material level with the spiritual powers and beings of the spirit level.

12:6.4 (135:14) In all your contemplation of universal phenomena, make certain that you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relation of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energies, and that due allowance is made for the unexpected phenomena attendant upon their unification by personality and for the unpredictable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experiential Deity and the Absolutes.

12:6.5 (135:15) The universe is highly predictable only in the quantitative or gravity-measurement sense; even the primal physical forces are not responsive to linear gravity, nor are the higher mind meanings and true spirit values of ultimate universe realities. Qualitatively, the universe is not highly predictable as regards new associations of forces, either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although many such combinations of energies or forces become partially predictable when subjected to critical observation. When matter, mind, and spirit are unified by creature personality, we are unable fully to predict the decisions of such a freewill being.

12:6.6 (135:16) All phases of primordial force, nascent spirit, and other nonpersonal ultimates appear to react in accordance with certain relatively stable but unknown laws and are characterized by a latitude of performance and an elasticity of response which are often disconcerting when encountered in the phenomena of a circumscribed and isolated situation. What is the explanation of this unpredictable freedom of reaction disclosed by these emerging universe actualities? These unknown, unfathomable unpredictables — whether pertaining to the behavior of a primordial unit of force, the reaction of an unidentified level of mind, or the phenomenon of a vast preuniverse in the

들과 절대자들의 현존-행위들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융통성과 그러한 심오한 조화-협동이 그 절대자들의 현존 그리고 행위를 의미하며, 그리고 명백히 확실적인 원인성에 대한 그러한 응답의 다양성이 즉각적이고도 상황적인 원인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주(主)우주에 두루 다른 모든 관련 원인성들에 대해서도 절대자들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추측한다.

개별존재들은 자신들의 운명의 수호자들을 갖고 있다; 행성들, 체계들, 별자리들,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들 각각은 그들의 권역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각각의 통치자들을 갖는다.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는 대우주도 그러한 높은 책임들이 위임된 그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4번째 그리고 가장 바깥쪽 공간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체로서 주(主)우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돌보고 염려할 자가 누구인가? 실존적으로 그러한 보살핌은 아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기인되겠지만, 체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이후 우주들의 상황은 다음에 의존한다:

1. 잠재에서 절대자.
2. 방향에서 궁극자.
3. 진화적인 조화-협동에서 최극자.
4. 특정한 통치자들의 출현에 선행하는 관리-행정에서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분별불가 절대자는 전체 공간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 모두가 신(神)과 우주 절대자들의 정확한 지위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神)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들이 기능하는 곳마다 후자의 기능들을 알고 있다. 신(神) 절대자는 우주적으로 현존할 수 있지만 공간 현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궁극자는 제4 공간 차원의 외부 경계에 공간 현존하거나 또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극자가 주(主)우주의 가장자리를 넘어서 공간 현존을 항상 가질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만, 이 한계 안에서 궁극자는 세 절대자들의 잠재의 창조적 조직을 점진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제 7 장. 부분과 전체

시간과 공간에 두루, 그리고 어떤 본성이든 모든 실체에 대하여 조화우주 섭리의 기능과 대등한 냉혹하고도 미(未)개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자비는 개별존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태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공명정대함은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태도에 동기가 된다. 하느님의 뜻이 부

making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 probably disclose the activities of the Ultimate and the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which antedate the function of all universe Creators.

^{12:6.7 (135.17)} We do not really know, but we surmise that such amazing versatility and such profound co-ordination signify the presence and performance of the Absolutes, and that such diversity of response in the face of apparently uniform causation discloses the reaction of the Absolutes, not only to the immediate and situational causation, but also to all other related causations throughout the entire master universe.

^{12:6.8 (135.18)} Individuals have their guardians of destiny; planets,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each have their respective rulers who labor for the good of their domains. Havona and even the grand universe are watched over by those intrusted with such high responsibilities. But who fosters and cares for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master universe as a whole, from Paradise to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Existentially such overcare is probably attributable to the Paradise Trinity, but from an experiential viewpoint the appearance of the post-Havona universes is dependent on:

- ^{12:6.9 (135.19)} 1. The Absolutes in potential.
- ^{12:6.10 (135.20)} 2. The Ultimate in direction.
- ^{12:6.11 (137.1)} 3. The Supreme in evolutionary co-ordination.
- ^{12:6.12 (137.2)} 4.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in administration prior to the appearance of specific rulers.

^{12:6.13 (137.3)} The Unqualified Absolute pervades all space. We are not altogether clear as to the exact status of the Deity and Universal Absolutes, but we know the latter functions wherever the Deity and Unqualified Absolutes function. The Deity Absolute may be universally present but hardly space present. The Ultimate is, or sometime will be, space present to the outer margins of the fourth space level. We doubt that the Ultimate will ever have a space presence beyond the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within this limit the Ultimate is progressively integrating the creative organization of the potentials of the three Absolutes.

7. THE PART AND THE WHOLE

^{12:7.1 (137.4)} There is operative throughout all time and space and with regard to all reality of whatever nature an inexorable and impersonal law which is equivalent to the function of a cosmic providence. Mercy characterizes God's attitude of love for the individual; impartiality motivates God's attitude

분—어떤 한 개인성의 가슴—속에 반드시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전체, 우주들의 우주를 실제적으로 다스린다.

그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그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하느님의 법칙들이 선천적으로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제한된 통찰력과 유한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느님의 행동들은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느님의 법칙들은 단지 하느님의 관습들, 반복적으로 일을 행하는 그의 방법일 뿐이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잘 이루신다. 너희는 하느님이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관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특별한 그 일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는 그것이 정확하고도 완전한 그 방법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명령한다. 너희는 또한 자연 현상이 신(神)의 독단적 행위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 속에는 다른 영향들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퇴보를 체험하고 또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를 어떤 열등한 방법으로 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은 신성한 본성에 모순된다. 아무튼 만일, 어떤 상황의 신성에 있어서, 어떤 환경의 극단에서, 최극 지혜의 진로가 다른 행위성의 요구를 지시하는 어떤 경우에—만일 완전성에 대한 요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반응의 방법, 더 나은 방법을 명령하면, 그 때 그리고 거기에 모든-지혜이신 하느님이 더 나은 그리고 더 적당한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보다 낮은 법칙의 반전이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활동들의 만성적 반복에 습관적으로 묶인 노예가 아니다. 무한자의 법칙들 가운데에는 갈등이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전혀 오류가 없는 본성의 모든 완전성이다; 그것들은 모두 결점이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명백한 행위들이다. 법칙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신성한 마음의 변함없는 반응이다. 하느님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의지적이다. 하느님 안에는 “변덕스러움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에 대해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의 모든 종속된 지능체들 또는 그의 진화적 창조체들에 대한 동일한 확실성에서 이야기될 수는 없다.

하느님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정상적 환경들 속에서, 동일한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것을 하는 그의 행위에 의존할 수 있다. 하느님은 창조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을 위한 안정성의 보증이다. 그는 하느님이 시며; 그러므로 그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행위성의 불변과 행동의 일관성은 개인적, 의식적이며 매우 의지적인데 왜냐하면 위대한 하느님은 그 자신의 완전성과 무한성에 대해

toward the total. The will of God does not necessarily prevail in the part — the heart of any one personality — but his will does actually rule the whole, the universe of universes.

12:7.2 (137.5) In all his dealings with all his beings it is true that the laws of God are not inherently arbitrary. To you, with your limited vision and finite viewpoint, the acts of God must often appear to be dictatorial and arbitrary. The laws of God are merely the habits of God, his way of repeatedly doing things; and he ever does all things well. You observe that God does the same thing in the same way, repeatedly, simply because that is the best way to do that particular thing in a given circumstance; and the best way is the right way, and therefore does infinite wisdom always order it done in that precise and perfect manner. You should also remember that nature is not the exclusive act of Deity; other influences are present in those phenomena which man calls nature.

12:7.3 (137.6) It is repugnant to the divine nature to suffer any sort of deterioration or ever to permit the execution of any purely personal act in an inferior way. It should be made clear, however, that, if, in the divinity of any situation, in the extremity of any circumstance, in any case where the course of supreme wisdom might indicate the demand for different conduct — if the demands of perfection might for any reason dictate another method of reaction, a better one, then and there would the all-wise God function in that better and more suitable way. That would be the expression of a higher law, not the reversal of a lower law.

12:7.4 (137.7) God is not a habit-bound slave to the chronicity of the repetition of his own voluntary acts. There is no conflict among the laws of the Infinite; they are all perfections of the infallible nature; they are all the unquestioned acts expressive of faultless decisions. Law is the unchanging reaction of an infinite, perfect, and divine mind. The acts of God are all volitional notwithstanding this apparent sameness. In God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But all this which can be truly said of the Universal Father cannot be said with equal certainty of all his subordinate intelligences or of his evolutionary creatures.

12:7.5 (137.8) Because God is changeless, therefore can you depend, in all ordinary circumstances, on his doing the same thing in the same identical and ordinary way. God is the assurance of stability for all created things and beings. He is God; therefore he changes not.

12:7.6 (138.1) And all this steadfastness of conduct and uniformity of action is personal, conscious, and highly volitional, for the great God is not a

어떤 도움도 없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아-행동하는 자동적 기체가 아니며; 그는 법칙에 묶인 노예적인 힘이 아니다. 하느님은 수학 방정식도 아니며 화학 공식도 아니다. 그는 자유의지이고 근원적 개인성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 개인성으로 가득 채워져 넘쳐나는 존재이며 모든 창조체 개인성의 우주 원천이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을 찾는 물질적 필사자의 가슴에 한결같이 가득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시간의 틀이 순간을 넘어, 첫 번째 일생 전체를 포용하도록 커진다면,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영-인도 자녀들의 삶 속에서 태어난 영 열매들 안에서 점점 더 식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일 인간 삶이 모로시아 체험을 포함할 정도로 더욱 증대되면, 신성한 뜻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과 사람의 개인성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이미 맛보기 시작한 시간의 이 창조체들의 영성화 되는 행위들 안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것이 관찰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은 개인성 차원의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를 나타낸다. 하느님은 각 개별존재를 하늘의 가족 안에서의 개별적 자녀로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각각의 개별존재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보편성은 전체의 관계, 우주적 형제신분이 되게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각 개인성을 우주 아버지의 독특한 한 자녀로, 무한성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자녀, 모든 영원에서 대치될 수 없는 의지적 자녀로, 절대적으로 개별존재화 시킨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느님의 각각 자녀를 영화롭게 하며, 천상의 가족의 각 구성원들을 비추고 있으며, 모든 것에서의 아버지의 형제우애 순환회로 밖에 있는 미(未)개인적 차원들에 대조하여 각 개인적 존재의 독특한 본성을 선명하게 윤곽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각각의 의지 창조체의 초월적 가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파라다이스 지위의 가장 높은 창조자 개인성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있는 인간 종족들의 여명기에 야만인 부족들 중에서 의지 존엄성을 갖는 가장 낮은 개인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들 각각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우주 아버지가 부여해온 높은 가치를 반드시 드러낸다.

개별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개별존재들의 신성한 가족,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자유의지의 자녀들이 우주적 형제신분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우주적인 이 형제신분은 우주적임으로 전체의 관계이다. 형제신분은, 우주적일 때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나타낸다. 형제신분은 전체의 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본질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의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helpless slave to his own perfection and infinity. God is not a self-acting automatic force; he is not a slavish law-bound power. God is neither a mathematical equation nor a chemical formula. He is a freewill and primal personality. He is the Universal Father, a being surcharged with personality and the universal fount of all creature personality.

12.7.7 (138.2) The will of God does not uniformly prevail in the heart of the God-seeking material mortal, but if the time frame is enlarged beyond the moment to embrace the whole of the first life, then does God's will become increasingly discernible in the spirit fruits which are borne in the lives of the spirit-led children of God. And then, if human life is further enlarged to include the morontia experience, the divine will is observed to shine brighter and brighter in the spiritualizing acts of those creatures of time who have begun to taste the divine delights of experiencing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ality of man with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2.7.8 (138.3)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present the paradox of the part and the whole on the level of personality. God loves *each* individual as an individual child in the heavenly family. Yet God thus loves *every* individual;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the universality of his love brings into being a relationship of the whole, the universal brotherhood.

12.7.9 (138.4) The love of the Father absolutely individualizes each personality as a unique child of the Universal Father, a child without duplicate in infinity, a will creature irreplaceable in all eternity. The Father's love glorifies each child of God, illuminating each member of the celestial family, sharply silhouetting the unique nature of each personal being against the impersonal levels that lie outside the fraternal circuit of the Father of all. The love of God strikingly portrays the transcendent value of each will creature, unmistakably reveals the high value which the Universal Father has placed upon each and every one of his children from the highest creator personality of Paradise status to the lowest personality of will dignity among the savage tribes of men in the dawn of the human species on some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12.7.10 (138.5) This very love of God for the individual brings into being the divine family of all individuals,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the freewill children of the Paradise Father. And this brotherhood, being universal, is a relationship of the whole. Brotherhood, when universal, discloses not the *each* relationship, but the *all* relationship. Brotherhood is a reality of the total and therefore discloses qualities of the whole in contradistinction to qualities of the part.

형제신분은 우주 실존에서 모든 개인성 사이의 관계 사실을 구성한다.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들에 대한 관계의 결과로서 올 수 있는 은혜 또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부분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겪는다. 각 사람의 선한 노력은 전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각 사람의 잘못 또는 악은 모든 사람들의 시련을 증강시킨다. 부분이 움직이는 만큼, 전체도 움직인다. 전체가 진보하는 만큼 부분도 진보한다. 부분과 전체의 상대적 속도는 부분이 전체의 관성에 의해 뒤쳐지는가 아니면 조화우주 형제신분의 추진력에 의해 앞으로 옮겨지는가를 결정한다.

하느님은, 거주 본부에 계시는 매우 개인적인 자아-의식의 존재이고, 동시에 그러한 광대한 우주에 개인적으로 계시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거의 무한한 숫자의 존재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음은 하나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라는 사실이 너희의 신앙을 조금도 경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성의 거대함, 영원의 광대함, 그리고 하느님의 비길 데 없는 성격의 위대함과 영광이 너희를 위압하거나 동요시키거나 낙담시키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들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움직이고, 실제로 살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있다.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그의 신성한 창조자들과 그의 창조 자녀들을 통하여 기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너희와 가장 긴밀한,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심히 개인적이어서, 그런 아버지 단편과 인간 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갖는 필사자 마음과의 신비로운 교제가 나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내적 접촉을 즐기신다. 하느님의 이 선물들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너희는 아버지가 그의 신성한 연관-동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의 진화하는 필사자 자녀들 과도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접촉하심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로 파라다이스에 거주하시지만, 그의 신성한 현존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거주하신다.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더라도, 아들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한 때 거했다 하더라도, 세라핌천사가 너희를 개인적으로 지키고 안내한다 하더라도, 둘째 그리고 셋째 중심의 이들 신성한 존재들 중 어느 누가, 너희 안에 있기 위하여 자신의 일부분을 내어준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거나, 그토록 충만하게 너희를 납득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너희의 실제적이고 신성한 자아, 심지어는 너희의 영원한, 자아가 되기를 언제까지나 희망할 수 있겠는가?

제 8 장. 물질, 마음, 그리고 영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그

12:7.11 (138.6) Brotherhood constitutes a fact of relationship between every personality in universal existence. No person can escape the benefits or the penalties that may come as a result of relationship to other persons. The part profits or suffers in measure with the whole. The good effort of each man benefits all men; the error or evil of each man augments the tribulation of all men. As moves the part, so moves the whole. As the progress of the whole, so the progress of the part. The relative velocities of part and whole determine whether the part is retarded by the inertia of the whole or is carried forward by the momentum of the cosmic brotherhood.

12:7.12 (139.1) It is a mystery that God is a highly personal self-conscious being with residential headquarters, and at the same time personally present in such a vast universe and personally in contact with such a well-nigh infinite number of beings. That such a phenomenon is a mystery beyond human comprehension should not in the least lessen your faith. Do not allow the magnitude of the infinity, the immensity of the eternity, and the grandeur and glory of the matchless character of God to overawe, stagger, or discourage you; for the Father is not very far from any one of you; he dwells within you, and in him do we all literally move, actually live, and veritably have our being.

12:7.13 (139.2) Even though the Paradise Father functions through his divine creators and his creature children, he also enjoys the most intimate inner contact with you, so sublime, so highly personal, that it is even beyond my comprehension — that mysterious communion of the Father fragment with the human soul and with the mortal mind of its actual indwelling. Knowing what you do of these gifts of God, you therefore know that the Father is in intimate touch, not only with his divine associates, but also with his evolutionary mortal children of time. The Father indeed abides on Paradise, but his divine presence also dwells in the minds of men.

12:7.14 (139.3) Even though the spirit of a Son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even though a Son once dwelt with you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even though the seraphim personally guard and guide you, how can any of these divine beings of the Second and Third Centers ever hope to come as near to you or to understand you as fully as the Father, who has given a part of himself to be in you, to be your real and divine, even your eternal, self?

8. MATTER, MIND, AND SPIRIT

12:8.1 (139.4) “God is spirit,” but Paradise is not. The

렇지 않다. 물질적 우주는 항상 모든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는 장(場)이다; 영 존재들과 영 상승자들은 물질적 실체의 물리적 구체 위에서 살고 활동한다.

조화우주 기세의 증여(贈與), 조화우주 중력의 권역은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이다. 모든 근본적인 기세-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고, 언급되지 않은 우주들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현재 주(主)우주에 두루 순회하고 있는데, 충만 공간의 기세-충전을 구성하는 초(超)중력 현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외곽 우주들 안에서 어떤 기세의 변환들이든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확실한 영원 섬의 끌어당김에 종속되어 운행하는데,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경로들의 끝없는 둘레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우주적 법칙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유일한 실체이다. 오직 창조체 의지의 영역에서만 신성한 경로들과 기원적 계획들로부터의 이탈이 존재할 뿐이다. 힘과 에너지는 중앙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의 안정성,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의 우주적 증거물들이다.

영의 증여와 개인성들의 영성화, 영적 중력의 권역은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영적 실체들을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아들의 영 중력은 파라다이스 섬의 만능의 물질적 장악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식별되는 영적 본성의 동등하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작용들과의 경우보다 물리적 본성의 물질적 현실활동들과 본래적으로 더 친밀하다.

우주에서 어떤 개인성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하느님과—같음이—되면 그것은 물질적 중력에 덜 응답하게 된다. 물리적-중력 응답에 의해 측정되는 실체는 영 내용물의 본질특성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실체의 정반대 대조물이다. 물리적-중력 활동은 비(非)영 에너지의 양적 결정자이다; 영적-중력 활동은 신성의 살아있는 에너지의 질적 척도이다.

물리적 창조에 대한 파라다이스의 관계, 영적 우주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관계는 마음의 영역들에 대한 공동 행위자의 관계—물질적, 모른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들 그리고 개인성들의 지능적 우주—와 같다.

공동 행위자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실체들 둘 모두에 반응하며 그러므로 모든 지능 존재들, 창조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위상들 둘 모두에 대해 연합을 나타낼 존재들에 대해 우주적 사명활동자가 된다. 지능의 자질, 마음의 현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명활동은 공동 행위자의

material universe is always the arena wherein take place all spiritual activities; spirit beings and spirit ascenders live and work on physical spheres of material reality.

12:8.2 (139.5) The bestowal of cosmic force, the domain of cosmic gravity, is the function of the Isle of Paradise. All original force-energy proceeds from Paradise, and the matter for the making of untold universes now circulates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in the form of a supergravity presence which constitutes the force-charge of pervaded space.

12:8.3 (139.6) Whatever the transformations of force in the outlying universes, having gone out from Paradise, it journeys on subject to the never-ending, ever-present, unfailing pull of the eternal Isle, obediently and inherently swinging on forever around the eternal space paths of the universes. Physical energy is the one reality which is true and steadfast in its obedience to universal law. Only in the realms of creature volition has there been deviation from the divine paths and the original plans. Power and energy are the universal evidences of the stability, constancy, and eternity of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12:8.4 (139.7) The bestowal of spirit and the spiritualization of personalities, the domain of spiritual gravity, is the realm of the Eternal Son. And this spirit gravity of the Son, ever drawing all spiritual realities to himself, is just as real and absolute as is the all-powerful material grasp of the Isle of Paradise. But material-minded man is naturally mo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a physical nature than with the equally real and mighty operations of a spiritual nature which are discerned only by the spiritual insight of the soul.

12:8.5 (140.1) As the mind of any personality in the universe becomes more spiritual — Godlike — it becomes less responsive to material gravity. Reality, measured by physical-gravity response, is the antithesis of reality as determined by quality of spirit content. Physical-gravity action is a quantitative determiner of nonspirit energy; spiritual-gravity action is the qualitative measure of the living energy of divinity.

12:8.6 (140.2) What Paradise is to the physical creation, and what the Eternal Son is to the spiritual universe, the Conjoint Actor is to the realms of mind — the intelligent universe of material, morontial, and spiritual beings and personalities.

12:8.7 (140.3) The Conjoint Actor reacts to both material and spiritual realities and therefore inherently becomes the universal minister to all intelligent beings, beings who may represent a union of both the material and spiritual phases of creation. The endowment of intelligence, the

독자적 권역인데, 그래서 그는 영적 마음의 동반자, 모론시아 마음의 본질, 그리고 시간의 진화적 창조체들의 물질적 마음의 본질체가 된다.

마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 실체들이 창조체 개인성들에게 체험적인 것이 되어가는 기법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인간 마음의 통합하는 가능성들, 즉 사물, 관념 그리고 가치를 조화-협동하는 능력은 초물질적이다.

상대적 우주 실체의 일곱 차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사자 마음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 지성은 유한 실체의 세 기능 차원들의 의미를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물질. 동작에 의해 변형되고 마음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적 중력에 종속되는 조직화된 에너지.

2. 마음. 전적으로 물질적 중력에 종속되지는 않는, 그리고 영에 의해 변형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조직화된 의식.

3. 영. 가장 높은 개인적 실체. 참된 영은 물리적 중력에 종속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개인성 존엄에서의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영향력이 될 것이다.

모든 개인성들의 실존 목표는 영이다; 물질적 현시활동들은 상대적이고, 조화우주 마음은 이 우주적 대응물 사이에 있다. 마음의 중여와 영의 돌봄은 신(神)의 연관 개인들, 무한한 영과 영원한 아들의 활동이다. 전체 신(神) 실체는 마음은 아니지만 영-마음, -개인성에 의해 통합된 마음-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사물 둘 모두의 절대성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한점으로 집중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세 에너지들, 물리적, 마음적, 영적인 것들이 조화-협동을 이룬다. 진화적 우주 안에서는 에너지-물질이 개인성 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세한데, 그곳에서는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지배하려고 분투한다. 영은 모든 창조체들의 개인성 체험의 기초적 실체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은 변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성 관계들에 있어서 그것이 마음과 물질 둘 모두를 초월하는데, 그것들은 진보적 달성의 체험적 변수들이다.

조화우주적 진화에 있어서 물질은 신성한 깨우침의 영 발광체의 현존 안에서 마음에 의해 부여된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에너지의 실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은 똑같이 실체적이지만, 그것들이 신성의 달성에 있어서 개인성에 대해 똑같은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신성에 대한 의식은 진보적인 영적 체

ministry to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n the phenomenon of mind, is the exclusive domain of the Conjoint Actor, who thus becomes the partner of the spiritual mind, the essence of the morontia mind, and the substance of the material mind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ime.

12:8.8 (140.4) Mind is the technique whereby spirit realities become experiential to creature personalities. And in the last analysis the unifying possibilities of even human mind, the ability to co-ordinate things, ideas, and values, is supermaterial.

12:8.9 (140.5) Though it is hardly possible for the mortal mind to comprehend the seven levels of relative cosmic reality, the human intellect should be able to grasp much of the meaning of three functioning levels of finite reality:

12:8.10 (140.6) 1. *Matter*. Organized energy which is subject to linear gravity except as it is modified by motion and conditioned by mind.

12:8.11 (140.7) 2. *Mind*. Organized consciousness which is not wholly subject to material gravity, and which becomes truly liberated when modified by spirit.

12:8.12 (140.8) 3. *Spirit*. The highest personal reality. True spirit is not subject to physical gravity but eventually becomes the motivating influence of all evolving energy systems of personality dignity.

12:8.13 (140.9) The goal of existence of all personalities is spirit; material manifestations are relative, and the cosmic mind intervenes between these universal opposites. The bestowal of mind and the ministration of spirit are the work of the associate persons of Deity, the Infinite Spirit and the Eternal Son. Total Deity reality is not mind but spirit-mind — mind-spirit unified by personality. Nevertheless the absolutes of both the spirit and the thing converge in the person of the Universal Father.

12:8.14 (140.10) On Paradise the three energies,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are co-ordinate. In the evolutionary cosmos energy-matter is dominant except in personality, where spirit,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is striving for the mastery. Spirit is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personality experience of all creatures because God is spirit. Spirit is unchanging, and therefore, in all personality relations, it transcends both mind and matter, which are experiential variables of progressive attainment.

12:8.15 (140.11) In cosmic evolution matter becomes a philosophic shadow cast by mind in the presence of spirit luminosity of divine enlightenment, but this does not invalidate the reality of matter-energy. Mind, matter, and spirit are equally real, but they are not of equal value to personality in the attainment of divinity.

힘이다.

영성화된 개인성(우주에 있는 아버지, 개별 창조체 안에 있는 잠재적 영 개인성의 단편)의 빛이 빛날수록 개재하는 마음에 의해 그것의 물질적 대상물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짙어진다. 시간 속에서 사람의 육신은 마음 또는 영과 마찬가지로 실체적이지만, 죽음에 이르면 마음(정체성)과 영은 둘 모두 살아남는 반면 육신은 그렇지 않다. 조화우주적 실체는 개인성 체험 안에서 실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그리스 언어의 수사—물질은 좀 더 실체적인 영 본체의 그림자이다—가 철학적 의미(意義)를 갖는다.

제 9 장. 개인적 실체들

영은 우주들에서 기본적인 개인적 실체이며, 개인성은 영적 실체와의 모든 진보하는 체험에 있어서 기본이다. 우주 진보의 이어지는 모든 차원에서의 개인성 체험의 모든 위상은 매혹적인 개인적 실체들의 발견에 단서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참된 운명은 새로운 영 목표의 창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 가치를 갖는 그러한 숭고한 목표들의 조화우주적 매혹에 응답하는 데에 있다.

사랑은 개인성들 사이의 유익한 관계적-연합의 비밀이다. 너희는 단 한 번의 접촉의 결과로 어떤 사람을 실체적으로 알 수 없다. 너희는 음악이 수학적인 어떤 형태의 리듬이라 하더라도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 음악의 진가를 알 수 없다. 전화 가입자에게 배정된 번호는 그 가입자의 개인성을 어떤 방법으로도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의 성격에 관해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수학, 물질과학은 우주의 물질적 측면들에 대한 지능적 토론에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지식이 진리의 보다 높은 실현 또는 영적 실체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생명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의 합은 그러한 연합의 예측 가능한 덧셈 결과 보다 더 어떤 것이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인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수학의 전체 과학, 철학의 전체 권역, 가장 높은 물리학 또는 화학은, 두 개의 수소 기체 원자들과 한 개의 산소 기체 원자의 연합이 어떤 새롭고도 질적인 초(超)덧셈의 본질—액체 물—로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알 수도 없다. 하나의 이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납득하는 지식은 물질적 철학과 기계적 우주론의 발달을 방해해 왔을 것이다.

Consciousness of divinity is a progressive spiritual experience.

12:8.16 (141.1) The brighter the shining of the spiritualized personality (the Father in the universe, the fragment of potential spirit personality in the individual creature), the greater the shadow cast by the intervening mind upon its material investment. In time, man's body is just as real as mind or spirit, but in death, both mind (identity) and spirit survive while the body does not. A cosmic reality can be nonexistent in personality experience. And so your Greek figure of speech — the material as the shadow of the more real spirit substance — does have a philosophic significance.

9. PERSONAL REALITIES

12:9.1 (141.2) Spirit is the basic personal reality in the universes, and personality is basic to all progressing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y. Every phase of personality experience on every successive level of universe progression swarms with clues to the discovery of alluring personal realities. Man's true destiny consists in the creation of new and spirit goals and then in responding to the cosmic allurements of such supernal goals of nonmaterial value.

12:9.2 (141.3) Love is the secret of beneficial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ies. You cannot really know a person as the result of a single contact. You cannot appreciatively know music through mathematical deduction, even though music is a form of mathematical rhythm. The number assigned to a telephone subscriber does not in any manner identify the personality of that subscriber or signify anything concerning his character.

12:9.3 (141.4) Mathematics, material science, is indispensable to the intelligent discussion of the material aspects of the universe, but such knowledge is not necessarily a part of the higher realization of truth or of the personal appreciation of spiritual realities. Not only in the realms of life but even in the world of physical energy, the sum of two or more things is very often something *more* than, or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predictable additive consequences of such unions. The entire science of mathematics, the whole domain of philosophy, the highest physics or chemistry, could not predict or know that the union of two gaseous hydrogen atoms with one gaseous oxygen atom would result in a new and qualitatively superadditive substance — liquid water. The understanding knowledge of this one physiochemical phenomenon should have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materialistic philosophy and mechanistic cosmology.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물은 불을 끄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물이 불을 끌 것이라는 사실은 일상적 체험의 결과이지만, 물에 대한 어떤 분석도 그러한 특성을 밝히는 데에 이용될 수 없었다. 분석은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결정하며; 이 요소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산소가 연소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수소는 스스로 자유롭게 타게 될 것을 알려준다.

너희 종교는 실제적인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에 대한 노예 그리고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창발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철학은 독단론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너희의 과학은 진리와 잘못 사이에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한편 추상적 속박, 수학의 노예, 그리고 기계적 물질주의의 상대적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운다.

필사 사람은 영 핵을 갖고 있다. 마음은 신성한 영 핵 둘레에 존재하는 그리고 물질적 환경 안에서 기능하는 개인적-에너지 체계이다. 개인적 마음과 영의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는 영원한 개인성의 우주 잠재력을 구성한다. 실제적인 고난, 계속되는 실망, 심각한 패배, 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자아-개념이 중앙의 영 핵의 지배하는 힘을 충분히 대치하려고 단언한 이후에만 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개인성 정체성의 조화우주 기획이 붕괴하는 것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12:9.4 (141.5) Technical analysis does not reveal what a person or a thing can do. For example: Water is used effectively to extinguish fire. That water will put out fire is a fact of everyday experience, but no analysis of water could ever be made to disclose such a property. Analysis determines that water is composed of hydrogen and oxygen; a further study of these elements discloses that oxygen is the real supporter of combustion and that hydrogen will itself freely burn.

12:9.5 (141.6) Your religion is becoming real because it is emerging from the slavery of fear and the bondage of superstition. Your philosophy struggles for emancipation from dogma and tradition. Your science is engaged in the age-long contest between truth and error while it fights for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abstraction, the slavery of mathematics, and the relative blindness of mechanistic materialism.

12:9.6 (142.1) Mortal man has a spirit nucleus. The mind is a personal-energy system existing around a divine spirit nucleus and functioning in a material environment. Such a living relationship of personal mind and spirit constitutes the universe potential of eternal personality. Real trouble, lasting disappointment, serious defeat, or inescapable death can come only after self-concepts presume fully to displace the governing power of the central spirit nucleus, thereby disrupting the cosmic scheme of personality identity.

12:9.7 (142.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제 13 편 파라다이스의 성스러운 구체

⇨ 012

유랜시아 책

014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3 편 파라다이스의 성스러운 구체

색션

소개

제 1 장. 아버지의 성스러운 일곱 세계들

제 2 장. 아버지-세계들의 관계

제 3 장. 영원한 아들의 성스러운 세계들

제 4 장. 무한한 영의 세계들

PAPER 13

THE SACRED SPHERES OF
PARADI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2. Father-World Relationships

3. The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4. The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소개

중앙의 파라다이스 섬과 하보나 행성 순환회로들의 가장 안쪽 사이에는 특별한 구체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세 순환회로들이 공간 안에 위치해 있다. 가장 안쪽 순환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영원한 아들의 일곱 빛나는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외부는 무한한 영의 일곱 거대한 구체들, 일곱 주(主) 영들의 집행-본부 세계들로 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 세 일곱-세계 순환회로들은 최고의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이다. 그것들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구조 역시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계층에 속한다. 각 순환회로는 물질적으로 다양하고, 각 순환회로의 각 세계는, 물리적 구조에 있어서는 비슷한 아들의 일곱 세계들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다. 21개 모두는 거대한 구체들이며, 일곱 개의 각 집단은 서로 다르게 영원화 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들은 항상 있어 왔다; 파라다이스와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영원하다. 그것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이나 전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들은, 영원한 섬에 아주 근접된 상태에서 파라다이스를 돌고 있는데, 영원한 신(神)들의 중앙 발광체에 대한 영적

INTRODUCTION

13:0.1 (143.1) BETWEEN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and the innermost of the Havona planetary circuits there are situated in space three lesser circuits of special spheres. The innermost circuit consists of the seven secret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econd group is composed of the seven luminous worlds of the Eternal Son; in the outermost are the seven immen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executive-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3:0.2 (143.2) These three seven-world circuit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re spheres of unexcelled grandeur and unimagined glory. Even their material or physical construction is of an order unrevealed to you. Each circuit is diverse in material, and each world of each circuit is different excepting the seven worlds of the Son, which are alike in physical constitution. All twenty-one are enormous spheres, and each group of seven is differently eternalized. As far as we know they have always been; like Paradise they are eternal. There exists neither record nor tradition of their origin.

13:0.3 (143.3) The seven secret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circulating about Paradise in close proximity to the eternal Isle, are highly

광채의 고도의 반영이며,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 신성한 영광의 이 빛을 발산한다.

영원한 아들의 일곱 신성한 세계들 위에서는 영 발광체의 미(未)개인적 에너지들이 기원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개인적 존재도 빛나는 이 일곱 영역들 중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없다. 영적 영광과 함께 그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전체를 밝혀 주고,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향해 순수한 영 발광성을 방향화한다. 두 번째 순환회로에 속한 빛나는 이들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를 향해 그리고 일곱-순환회로화된 중앙우주의 10억 세계들을 향해 그것들의 빛(열이 없는 빛)을 내뿜는다.

무한한 영의 일곱 세계들은 일곱 주(主)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운명(運命)을 관리하고,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를 향해 신(神)의 셋째 개인의 영적 휘광을 내보낸다. 그리고 하보나 모두는, 그러나 파라다이스 점은 제외하고, 영성화하는 이들 영향에 적시어 씻겨진다.

비록 아버지의 그 세계들이 모든 아버지-자질로서 부여된 개인성들을 위한 궁극적 지위의 구체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들의 배타적 기능은 아니다. 개인적이지 않은 많은 존재들과 실존개체들이 이 세계들 위에 머문다. 아버지의 순환회로와 영의 순환회로 안에 있는 각 세계는 영구 시민 신분에서의 뚜렷한 유형을 갖지만, 우리는 아들의 세계들에는 개인적-아닌-다른 존재의 확일적 유형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단편들은 신성별 원주민들에 속한다; 영구 시민신분을 갖는 다른 계층들은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21개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은 이 글들에서 밝혀지지 않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 안에서 많은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너희가 이들 구체들의 삶에 대해 거의 납득할 수 없기에 너희는 그것들에 대해, 본성이나 기능에서나, 일관된 견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얻을 희망이 없다;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1개의 이들 구체들은 주 우주의 기능의 잠재들을 포용한다. 이 글들은 대우주—실은 대우주의 일곱 구역중 하나—의 현재 우주 시대의 일정한 제한된 활동들의 순간적인 언뜻 보기를 제공할 뿐이다.

reflective of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central shining of the eternal Deities, shedding this light of divine glory throughout Paradise and even up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13:0.4 (143.4) On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there appear to take origin the impersonal energies of spirit luminosity. No personal being may sojourn on any of these seven shining realms. With spiritual glory they illuminate all Paradise and Havona, and they directionize pure spirit luminosity to the seven superuniverses. These brilliant spheres of the second circuit likewise emit their light (light without heat) to Paradise and to the billion worlds of the seven-circuited central universe.

13:0.5 (143.5) The seven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are occupi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nding forth the spiritual illumination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to thes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nd all Havona, but not the Isle of Paradise, is bathed in these spiritualizing influences.

13:0.6 (143.6) Although the worlds of the Father are ultimate status spheres for all Father-endowed personalities, this is not their exclusive function. Many beings and entities other than personal sojourn on these worlds. Each world in the circuit of the Father and the circuit of the Spirit has a distinct type of permanent citizenship, but we think the Son's worlds are inhabited by uniform types of other-than-personal beings. Father fragments are among the natives of Divinington; the other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are unrevealed to you.

13:0.7 (143.7) The twenty-one Paradise satellites serve many purposes in both central and superuniverses not disclosed in these narratives. You are able to understand so little of the life of these spheres that you cannot hope to gain anything like a consistent view of them, either as to nature or function; thousands of activities are there going on which are unrevealed to you. These twenty-one spheres embrace the *potentials* of the function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papers afford only a fleeting glimpse of certain circumscribed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present universe age of the grand universe — rather, one of the seven sectors of the grand universe.

제 1 장. 아버지의 성스러운 일곱 세계들

성스러운 생명 구체들의 아버지의 순환회로는 우주들의 우주에서 오직 선천적인 개인성 비밀들만을 품고있는 곳이다. 세 순환회로들 중 가장 안쪽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이 위성들은 중앙우주에서, 개인성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금지된 권역들

1.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13:1.1 (144.1) The Father's circuit of sacred life spheres contains the only inherent personality secret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se satellites of Paradise, the innermost of the three circuits, are the only forbidden domains concerned

이다. 아들의 세계들과 하부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성들에게 닫혀 있지만, 그러나 이들 권역들의 그 어떤 곳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인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가장 높은 계층,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이 세계들 중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것들의 각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정보는 그곳에서 기능하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가는 그 존재들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특별한 이 세계들 중 여섯 개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전적으로 나에게 금지되어 있는 신성별에는 결코 가 본 적이 없다.

이 세계들이 비밀로 되어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성스러운 이들 구체들 각각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神)들의 특정된 표현 또는 현시활동을 누리기 때문이다; 개인성이 아니라, 특별한 집단의 그 지능체들에 의해서만 식별되고 이해될 수 있는, 신성의 독특한 현존이 특별한 그 구체 위에 거주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신성의 특유한 그리고 미(未)개인적인 이들 현존에 대한 개인적 대리자들이다. 그리고 최극위의 비밀들은 높은 개인적 존재들이며, 그들의 고양된 그리고 엄격한 활동에 뛰어나도록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그리고 놀라운 정도로 적응되어 있다.

1. 신성별. 이 세계는, 독특한 개념에서, “아버지의 품”,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교제 구체며, 그곳은 그의 신성의 특별한 현시활동이다. 신성별은 생각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집합장소이지만, 또한 그것은 수많은 다른 실존개체들, 개인성들,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원한 아들을 제외한 많은 개인성들은 우주 아버지의 독자적 행위에 의해 직접 기원된다. 오직 아버지 단편들과 그 개인성들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서 직접적 그리고 배타적 기원을 갖는 다른 존재들만이 이 거주지에서 형제우애를 나누면서 기능한다.

신성별의 비밀 중에는 생각 조절자들의 중여와 임무의 비밀이 있다. 그들의 본성, 기원,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초라한 창조체들과의 그들의 접촉 기법은 이 파라다이스 구체의 비밀이다. 놀라운 이 활동행위들은 우리들 중 누구와도 개인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신(神)들은, 이 위대하고도 신성한 사명활동의 특별한 특징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납득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성한 활동의 이 위상과 접촉하는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 활동행위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허락 받지만, 이 위대한 증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다.

이 구체는 또한 아버지 단편들의 모든 다른 형태들, 중력 메신저들, 그리고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존재 무리의, 본질과 목적과 활동들

with personality in the central universe. Nether Paradise and the worlds of the Son are likewise closed to personalities, but neither of those realms is in any way directly concerned with personality.

13.1.2 (144.2) The Paradise worlds of the Father are directed by the highest order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Of these worlds I can tell little; of their manifold activities I may tell less. Such information concerns only those beings who function thereon and go forth therefrom. And though I am somewhat familiar with six of these special worlds, never have I landed on Divinington; that world is wholly forbidden to me.

13.1.3 (144.3) One of the reasons for the secrecy of these worlds is because each of these sacred spheres enjoys a specialized representation, or manifestation, of the Deities composing the Paradise Trinity; not a personality, but a unique presence of Divinity which can only be appreciated and comprehended by those particular groups of intelligences resident on, or admissible to, that particular sphere.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are the personal agents of these specialized and impersonal presences of Divinity. And the Secrets of Supremacy are highly personal beings, superbly endowed and marvelously adapted to their exalted and exacting work.

13.1.4 (144.4) 1. DIVININGTON. This world is, in a unique sense, the “bosom of the Father,” the personal-communion sphe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reon is a special manifestation of his divinity. Divinington is the Paradise rendezvous of the Thought Adjusters, but it is also the home of numerous other entities, personalities, and other beings taking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Many personalities besides the Eternal Son are of direct origin by the solitary acts of the Universal Father. Only the Father fragments and those personalities and other beings of direct and exclusive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fraternize and function on this abode.

13.1.5 (144.5) The secrets of Divinington include the secret of the bestowal and mission of Thought Adjusters. Their nature, origin, and the technique of their contact with the lowly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is a secret of this Paradise sphere. These amazing transactions do not personally concern the rest of us, and therefore do the Deities deem it proper to withhold certain features of this great and divine ministry from our full understanding. In so far as we come in contact with this phase of divine activity, we are permitted full knowledge of these transactions, but concerning the intimate details of this great bestowal we are not fully informed.

13.1.6 (145.1) This sphere also holds the secrets of the nature, purpose, and activities of all other forms of Father fragments, of the Gravity

의 비밀을 간직한다.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성별에 속하고 있는 그 진리들이 만약에 계시된다면, 현재의 내 일에서 나를 거의 혼동시키고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것들이 내 계층의 존재의 개념적 수용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2. 아들별.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접수 세계이다. 그것은 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후에 하강하고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본부이다. 이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조화-협동 그리고 연관-동료 아들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그들은 우주들을 통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인간의 영적 진보라는 상승 기획의 계획들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바는 없는, 뛰어난 이 거주지들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수많은 계층들에게 배정되어 있다.

아들별의 비밀은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의 비밀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때,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서 발생했듯이, 글자 그대로 여자로부터 태어날 때, 그것은 하나의 우주 신비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들에 두루 발생하며, 그것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아들별 비밀이다. 조절자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신비이다.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는 아들 하느님의 신비이다; 그것은 아들별의 일곱 번째 구역, 독특한 이 체험을 개인적으로 통과한 그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비밀이다. 너희의 상승 생애와 반드시 관계되는 육신화의 그 위상들만이 너희에게 알려져 왔다.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의 임무들에 있어서 계시되지 않은 유형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육신화의 신비에 해당하는 많은 다른 위상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아들별 신비들이 있다.

3. 영성별. 이 세계는 “영의 품”, 무한한 영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높은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이곳은 일곱 주(主) 영과 모든 우주로부터 온 일정한 그들의 자손이 함께 만나는 곳이다. 이 천상의 거주지에서는 또한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의 영 개인성들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영원한 파라다이스 차원들을 향해 시간의 필사 창조체들을 증진시키는 계획들과 연관되지 않은, 우주의 각가지 활동들에 배정된 존재들이다.

영성별의 비밀은 반영성을 갖는 불가해한 신비를 포함한다. 우리는 반영성이라는 광대하고도 우주적인 현상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더욱 특별히 그것이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세계에서 작동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로 매우 많

Messengers, and of hosts of other beings unrevealed to you.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ose truths pertaining to Divinington which are withheld from me, if revealed, would merely confuse and handicap me in my present work, and still again, perhaps they are beyond the conceptual capacity of my order of being.

13.1.7 (145.2) 2. SONARINGTON. This sphere is the “bosom of the Son,” the personal receiving world of the Eternal Son. It is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descending and ascending Sons of God when, and after, they are fully accredited and finally approved. This world is the Paradise home for all Sons of the Eternal Son and of his co-ordinate and associate Sons. There are numerous orders of divine sonship attached to this supernal abode which have not been revealed to mortals since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plans of the ascension scheme of human spiritual progression through the universes and on to Paradise.

13.1.8 (145.3) *The secrets of Sonarington* include the secret of the incarnation of the divine Sons. When a Son of God becomes a Son of Man, is literally born of woman, as occurred on your world nineteen hundred years ago, it is a universal mystery. It is occurring right along throughout the universes, and it is a Sonarington secret of divine sonship. The Adjusters are a mystery of God the Father. The incarnation of the divine Sons is a mystery of God the Son; it is a secret locked up in the seventh sector of Sonarington, a realm penetrated by none save those who have personally passed through this unique experience. Only those phases of incarnation having to do with your ascension career have been brought to your notice. There are many other phases of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of the Paradise Sons of unrevealed types on missions of universe service which are undisclosed to you. And there are still other Sonarington mysteries.

13.1.9 (145.4) 3. SPIRITINGTON. This world is the “bosom of the Spirit,” the Paradise home of the high beings that exclusively represent the Infinite Spirit. Here forgather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ertain of their offspring from all universes. At this celestial abode may also be found numerous unrevealed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beings assigned to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e universe not associated with the plans of upstepping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to the Paradise levels of eternity.

13.1.10 (145.5) *The secrets of Spiritington* involve the impenetrable mysteries of reflectivity. We tell you of the vast and universal phenomenon of reflectivity, more particularly as it is operative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we never fully explain this phenomenon, for we do not fully understand it.

은 것들을 깨닫지만, 많은 기본적 세부내용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다. 반영성은 영하느님의 비밀이다. 너희는 필사자 생존이라는 상승 기획과 관련된 반영성 기능들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으며 또 그것은 것처럼 작동한다, 그러나 반영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우주 업무 위상들의 통상 활동의 불가결한 특징이기도 하다. 무한한 영의 이 자질은 지능을 모으고 정보를 살포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통로들로 활용된다. 그리고 영성별의 다른 비밀들이 있다.

4. 대관별.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으로 기원된 어떤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비밀 구체다. 이것은 또한 복잡한 선조의 많은 영화롭게 된 존재들,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작동하는 많은 다양한 기법들 때문에 그 기원이 복잡하게 된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이기도 하다. 그 정체성이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는, 여러 집단의 존재들이 이 세계에 모인다.

대관별의 비밀은 삼위일체화구현의 비밀을 포함하고, 삼위일체화구현은 하느님들의 대관으로 활동하는 권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권한의 비밀을 구성한다.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권한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어떤 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삼위일체화 되거나, 창조되거나, 결국 생겨나거나, 또는 영원화된 그러한 존재,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았거나, 오직 그러한 존재들에게만 부여한다. 영화롭게 된 창조체들의 일정 유형에서의 삼위일체화 활동에 따라 존재로서 나오는 개인성들은, 비록 그러한 창조체들이 그들 부류의 모두에게 열린, 신(神) 포옹의 행로를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삼위일체화 작용에 동원되어지는 개념적 잠재에서 더 이상은 대표할 수가 없다.

둘 또는 세 창조자들에 의해 혹은 일정한 창조체들에 의해 삼위일체화구현 되는 기법을, 삼위일체화 되지 않은 존재들은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의 영화롭게 되는 생애의 먼 미래에서 그 어떤 모험 안에서 너희가 시도하여 성공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러한 현상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관별의 이 비밀은 항상 너희에게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삼위일체-기원 존재, 나에게서는 대관별의 모든 구역들이 개방되어 있다. 나는 나의 기원과 운명의 비밀을 충분하게 납득하고 그리고 꼭 그와 같이 충분하게 그리고 성스럽게 보호한다.

유란시아 인류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풀린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화구현의 또 다른 형태들과 위상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은, 그들의 개인적 측면들에서, 대관별의 비밀 구역 안에서 마땅히 보호되고 있다.

5. 단독자별.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고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공동 행동에서 기원되는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장엄한 무리, 그

Much, very much, we do comprehend, but many basic details are still mysterious to us. Reflectivity is a secret of God the Spirit. You have been instructed concerning reflectivity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ascension scheme of mortal survival, and it does so operate, but reflectivity is also an indispensable feature of the normal working of numerous other phases of universe occupation. This endowment of the Infinite Spirit is also utilized in channels other than those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re are other secrets of Spiritington.

13.1.11 (145.6) 4. VICEGERINGTON. This planet is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is the secret sphere of certain unrevealed beings who take origin by the act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is is also the Paradise home of many glorified beings of complex ancestry, those whose origin is complicated because of the many diverse techniques operativ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Many groups of beings forgather on this world whose identity has not been revealed to Urantia mortals.

13.1.12 (146.1) *The secrets of Vicegerington* include the secrets of trinitization, and trinitization constitutes the secret of authority to represent the Trinity, to act as vicegerents of the Gods. Authority to represent the Trinity attaches only to those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who are trinitized, created, eventuated, or eternalized by any two or all three of the Paradise Trinity. Personalities brought into being by the trinitizing acts of certain types of glorified creatures represent no more than the conceptual potential mobilized in that trinitization, albeit such creatures may ascend the path of Deity embrace open to all of their kind.

13.1.13 (146.2) Nontrinitized being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by either two or three Creators or by certain creatures. You will never fully understand such a phenomenon unless, in the far-distant future of your glorified career, you should essay and succeed in such an adventure, because otherwise these secrets of Vicegerington will always be forbidden you. But to me, a high Trinity-origin being, all sectors of Vicegerington are open. I fully understand, and just as fully and sacredly protect, the secret of my origin and destiny.

13.1.14 (146.3) There are still other forms and phases of trinitization which have not been brought to the notice of the Urantia peoples, and these experiences, in their personal aspects, are duly protected in the secret sector of Vicegerington.

13.1.15 (146.4) 5. SOLITARINGTON. This world is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and is the rendezvous of a magnificent host of unrevealed

들의 영 상속물 뿐 아니라 아버지의 특색까지도 나눠가진 존재들의 집합장소이다.

이곳은 또한 단독 메신저들과 그 밖의 특급천사 계층의 다른 개인성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너희는 이 존재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계층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다섯 번째 세계에 거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독 메신저들 또는 그들의 특급천사 연관-동료들의 창조에 무엇이건 행하는 것으로 여길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우주 시대에, 그는 그들의 기능으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이것은 또한 우주 힘 지도자들의 지위 구체이기도 하다.

그 밖에 수많은 또 다른 영 개인성 계층들, 단독자별을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 구체처럼 여기는, 필사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우주 활동들의 모든 분야들과 차원들이 자신의 신성한 파라다이스 운명으로 상승하는 필사 사람을 돕는 것에 관련된 영역이듯이, 그와 같이 충분하게 영 사명활동자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독자별의 비밀. 삼위일체화구현의 어떤 비밀은 제외하고, 이 세계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특정한 더 높은 후손들과 무한한 영의 개인적 관계의 비밀을 간직한다. 단독자별에서는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영의 영들과, 그리고 삼위일체의 삼중 영과, 그리고 최극자, 궁극자, 최극-궁극자의 영들과 친밀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신비들이 간직되어 있다.

6. 천사별.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고 아들과 영에 의해 창조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로 구성된 광대한 무리의 고향 세계이다. 이곳은 또한 초(超)천사, 2품천사, 그리고 세라핌천사를 포함하여, 천사 무리의 모든 사명활동하는 계층의 운명 구체이기도 하다. 중앙과 바깥 우주들 안에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에게 사명활동하는 영들”이 아닌, 장엄한 영들의 많은 계층이 봉사한다. 우주 활동들의 모든 차원과 영역들 안에서 이 모든 영 일꾼들은 천사별을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으로 여긴다.

천사별의 비밀은 삼중 신비, 그들 중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세라핌천사 운송의 신비—에 싸여있다. 다양한 계층의 세라핌천사 그리고 결연된 영 존재들이 그들의 영 형태 속으로 모든 비물질적 개인성계층을 감싸고 그리고 긴 행성 간 여행에 그들을 옮기는 능력은, 천사별의 성스러운 구역들 안에 잠겨있는 비밀이다. 그 운송 세라핌천사는 이 신비를 인식하지만, 그들 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아마 할 수 없는 듯하다. 천사별의 다른 신비들은 아직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영 봉사자들의 개인적 체험들과 관계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까운

beings of origin in the conjoint act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beings who partake of the traits of the Father in addition to their Spirit inheritance.

13.1.16 (146.5) This is also the home of the Solitary Messengers and of other personalities of the superangelic orders. You know of very few of these beings; there are vast numbers of orders unrevealed on Urantia. Because they are domiciled on the fifth world,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the Father had ought to do with the creation of Solitary Messengers or their superangelic associates, but in this universe age he does have to do with their function.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is also the status sphere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13.1.17 (146.6)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beings unknown to mortal man, who look upon Solitar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spher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ll divisions and levels of universe activities are just as fully provided with spirit ministers as is the realm concerned with helping mortal man ascend to his divine Paradise destiny.

13.1.18 (146.7) *The secrets of Solitarington.* Besides certain secrets of trinitization, this world holds the secrets of the personal relation of the Infinite Spirit with certain of the higher offspring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Solitarington are held the mysteries of the intimate association of numerous unrevealed orders with the spirits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with the threefold spirit of the Trinity, and with the spirits of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Supreme-Ultimate.

13.1.19 (146.8) 6. SERAPHINGTON. This sphere is the “bosom of the Son and the Spirit” and is the home world of the vast hosts of unrevealed beings created by the Son and the Spirit. This is also the destiny sphere of all ministering orders of the angelic hosts, including supernaphim, seconaphim, and seraphim. There also serve in the central and outlying universes many orders of superb spirits who are not “ministering spirits to those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All these spirit workers in all levels and realms of universe activities look upon Seraph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13.1.20 (147.1) *The secrets of Seraphington* involve a threefold mystery, only one of which I may mention — the mystery of seraphic transport. The ability of various orders of seraphim and allied spirit beings to envelop within their spirit forms all orders of nonmaterial personalities and to carry them away on lengthy interplanetary journeys, is a secret locked up in the sacred sectors of Seraphington. The transport seraphim comprehend this mystery, but they do not communicate it to the rest of us, or perhaps they cannot. The other mysteries of Seraphington pertain to the personal experiences

실존의 계층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 지식조차도 제시하는 것은 신뢰를 배신하는 것에 가깝기에.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관련된 존재들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삼가고 있다.

7. 상승자별. 독특한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품”, 공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집합 장소, 파라다이스를 향한 그들의 길에 하보나 우주를 통과해 지나가는 시간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구체다. 상승자별은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혼들이 파라다이스 지위를 달성할 때까지 그들의 실재적인 파라다이스 고향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의 하보나 “휴가들” 대부분을 상승자별에서 보낼 것이다. 너희의 하보나 생활동안, 상승자별은, 복귀 지도자들이 지역우주와 초우주 상승 기간 동안 되었던 것을, 너희에게 되어 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필사자 상상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천가지의 활동에 종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상승에 서 그 이전에 이론 모든 향상에 따라, 너희 인간 자아는 여기에서 너희의 신성한 자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상승자별의 비밀은 물질적이고 필사인 마음 안에서, 성격과 정체성의 영적이고 잠재적 불멸의 부분이 점진적이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신비를 포함한다. 이 현상은 우주들의 가장 복잡한 신비 중의 하나—필사 물질적인 창조체의 마음 안에서 불멸 혼의 진화—를 이룬다.

너희는 상승자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신비로운 활동행위를 결코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승자별 전체가 너희의 경탄하는 눈앞에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이유이다. 상승자별의 7분의 1은 나에게 금지되어 있다—이와 관련된 구역은 너희와 같은 존재 유형의 배타적 체험과 소유물인 (또는 소유물이 될) 바로 그 비밀이다. 이런 체험은 너희 인간 실존의 계층에 속한다. 나의 개인성 계층은 그러한 활동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에게 금지되어 있고 결국에는 너희에게 계시된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 계시된 이후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나 너희의 비밀로 남는다. 너희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또한 어떤 다른 존재 계층에게도 알릴 수 없다. 우리는 신성한 조절자와 인간 기원의 불멸의 혼의 영원한 융합에 관하여 알지만, 상승하는 최종자는 바로 이 체험을 절대적 실체로서 안다.

제 2 장. 아버지-세계들의 관계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의 이 고향 세계들은 거대하면서도 엄청난 구체들이고, 그것들은 비길 데 없는 그 아름다움과 장엄한 영광에서 파라다이스에 필적될 만하다. 그것들은 집합장소의 세계들, 재결합 구체들이며, 영구한 조화우주 주소

of types of spirit servers as yet not revealed to mortals. And we refrain from discussing the secrets of such closely related beings because you can almost comprehend such near orders of existence, and it would be akin to betrayal of trust to present even our partial knowledge of such phenomena.

13:1.21 (147.2) 7. ASCENDINGTON. This unique world is the “bosom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the rendezvous of the ascendant creatures of space, the receiving sphere of the pilgrims of time who are passing through the Havona universe on their way to Paradise. Ascendington is the actual Paradise home of the ascendant souls of time and space until they attain Paradise status. You mortals will spend most of your Havona “vacations” on Ascendington. During your Havona life Ascendington will be to you what the reversion directors were during the local and superuniverse ascension. Here you will engage in thousands of activities which are beyond the grasp of mortal imagination. And as on every previous advance in the Godward ascent, your human self will here enter into new relationships with your divine self.

13:1.22 (147.3) *The secrets of Ascendington* include the mystery of the gradual and certain building up in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of a spiritual and potentially immortal counterpart of character and identity. This phenomen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perplexing mysteries of the universes —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within the mind of a mortal and material creature.

13:1.23 (147.4) You will never fully understand this mysterious transaction until you reach Ascendington. And that is just why all Ascendington will be open to your wondering gaze. One seventh of Ascendington is forbidden to me — that sector concerned with this very secret which is (or will be) the exclusive experience and possession of your type of being. This experience belongs to your human order of existence. My order of personality is not directly concerned with such transactions.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me and eventually revealed to you. But even after it is revealed to you, for some reason it forever remains your secret. You do not reveal it to us nor to any other order of beings. We know about the eternal fusion of a divine Adjuster and an immortal soul of human origin, but the ascendant finalizers know this very experience as an absolute reality.

2. FATHER-WORLD RELATIONSHIPS

13:2.1 (147.5) These home worlds of the diverse orders of spiritual beings are tremendous and stupendous spheres, and they are equal to Paradise in their matchless beauty and superb glory. They are rendezvous worlds, reunion

로서 쓰이고 있다. 최종자로서 너희는 파라다이스에 거처를 정하게 되겠지만, 상승자별은 언제든지, 심지어는 너희가 외부 우주에서 봉사에 들어갈 때에도, 너희의 고향 주소가 될 것이다. 모든 영원을 통하여 너희는 상승자별을 정서적인 기억과 추억에 잠긴 회상의 고향으로 간주할 것이다. 너희가 일곱 번째-단계의 영 존재들이 될 때, 아마 너희는 파라다이스에서의 너희의 거주 지위를 버릴 것이다.

만약에 외부 우주들이 조성되고 있다면, 만약 그것들이 상승 잠재의 시간 창조체들로 거주되어 있다면, 그러면 미래의 이 자녀들도 역시 상승자별을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 세계로 여기도록 운명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한다.

상승자별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서 너희가 검열해볼 수 있도록 남김없이 개방될 유일한 성스러운 구체다. 대관별은 나의 정밀한 조사에 전적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개방된 유일한 성스러운 구체다. 비록 그것의 비밀들이 나의 기원과 관련되더라도, 이 우주 시대에 있어서 나는 대관별을 나의 고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과 삼위일체화 존재들은 같지 않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아버지의 세계들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거룩구체에 아주 근접하는 파라다이스 섬 위에 그들의 독자적 고향을 갖는다. 그들은 종종 상승자별, “아버지-아들-영의 품”에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공간의 낮은 세계들로부터 올라온 그들의 형제와 형제우애를 갖는다.

너희는 창조자 아들들, 아버지-아들 기원 존재들이 대관별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기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칠중 하느님의 기능의 이 우주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희를 당황하게 만들 많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매우 가까운 이 문제들을 납득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너희는 더욱 많은 어려움과 쉽게 마주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질문들을 성공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음은 물론; 너희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세계들에 관하여 좀 더 알았다고 해도, 너희는 너희가 그것들에 관하여 모두 알게 되기 전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뿐이다. 이 비밀 세계들 어느 곳에서든 그 지위는 기원의 본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봉사에 의해 획득되며,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은 이들 개인성 집단화들 중 어떤 것을 재분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내부 순환회로의 세계들은 실재적인 거주구체라기 보다는 실제로 형제우애의 곧 지위의 세계들이다. 필사자들은 하나를 제외한 아버지의 세계들 각각에서 어떤 지위를 달성한다. 예를 들자면: 너희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달하였을 때, 너희가 최고의 환영을 받을 상승자별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다른 여섯 곳의 성스러운 세계들로의 방문은 허락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체제를 통과한 다음 그리고 너희가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진 후에는, 너희가 상승자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들—그리고 또 너희는 그 이상이기

spheres, serving as permanent cosmic addresses. As finalizers you will be domiciled on Paradise, but Ascendington will be your home address at all times, even when you enter service in outer space. Through all eternity you will regard Ascendington as your home of sentimental memories and reminiscent recollections. When you become seventh-stage spirit beings, possibly you will give up your residential status on Paradise.

13:2.2 (148.1) If outer universes are in the making, if they are to be inhabited by time creatures of ascension potential, then we infer that these children of the future will also be destined to look upon Ascendington as their Paradise home world.

13:2.3 (148.2) Ascendington is the only sacred sphere that will be unreservedly open to your inspection as a Paradise arrival. Vicegerington is the only sacred sphere that is wholly and unreservedly open to my scrutiny. Though its secrets are concerned in my origin, in this universe age I do not regard Vicegerington as my home. Trinity-origin beings and trinitized beings are not the same.

13:2.4 (148.3) The Trinity-origin beings do not fully share the Father's worlds; they have their sole homes on the Isle of Paradise in close proximity to the Most Holy Sphere. They often appear on Ascendington, the “bosom of the Father-Son-Spirit,” where they fraternize with their brethren who have come up from the lowly worlds of space.

13:2.5 (148.4) You might assume that Creator Sons, being of Father-Son origin, would regard Vicegerington as their home, but such is not the case in this universe age of the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And there are many similar problems that will perplex you, for you are sure to encounter many difficulties as you attempt to understand these things which are so near Paradise. Nor can you successfully reason out these questions; you know so little. And if you knew more about the Father's worlds, you would simply encounter more difficulties until you knew *all* about them. Status on any of these secret worlds is acquired by service as well as by nature of origin, and the successive universe ages may and do redistribute certain of these personality groupings.

13:2.6 (148.5) The worlds of the inner circuit are really fraternal or status worlds more than actual residential spheres. Mortals will attain some status on each of the Father's worlds save one. For example: When you mortals attain Havona, you are granted clearance for Ascendington, where you are most welcome, but you are not permitted to visit the other six sacred worlds. Subsequent to your passage through the Paradise regime and after you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you are granted clearance for Sonarington since

에, 너희는 아들별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 비밀의 구역인, 아들별의 7분의 1은 항상 남아있게 되는데, 그곳은 너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 비밀은 하느님의 상송하는 아들들에게 결코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는 상승자별에 대한 충분한 접근. 그리고 신성별을 제외한 아버지의 다른 구체들에 대한 상대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최종자가 된 후에, 너희가 다섯 개의 추가적 비밀 구체들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을 때에라도, 너희는 그러한 세계들의 모든 구역들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분명하게 여러 번 서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품”, 신성별의 해안에 상륙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시간에 두루 생각 조절자들의 세계에는 너희 현존의 어떤 필요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 생명의 이 집합장소 세계들은 우리의 체험 영역을 전적으로 벗어나는 이들 구체의 위상에 들어가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요청받을 정도로 금지된 지역이다. 너희는 우주 아버지가 신(神) 완전 이신 것처럼 창조체 완전에 이를 수 있지만, 너희는 우주 개인성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의 체험적 비밀들 모두를 알지 않아도 된다.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체와의 체험적 개인성 비밀을 가질 때, 그 창조자는 영원한 확신 속에 그 비밀을 지킨다.

이 모든 비밀들은 짐작하건데, 최극위의 삼위 일체화된 비밀들의 집합체에게 알려져 있다. 이들 존재들은 오직 그들의 특별 세계 집단에게만 충분히 알려져 있고; 다른 계층들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후에, 너희는 상승자별을 지도하는 10명의 최극위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열렬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신성별을 제외하고, 너희는 상승자별에서처럼 그렇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다른 세계들에서 또한 최극위의 비밀들에 대한 부분적 남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최극자와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궁극자에게 그리고 미래의 최극-궁극자에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 최극위의 비밀은 최극자의 비밀인 동시에 궁극자의 비밀이고, 또한 최극-궁극자의 비밀들이다.

제 3 장. 영원한 아들의 성스러운 세계들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구체들은 순수-영(靈) 실존(實在)의 일곱 위상들의 세계들이다. 빛나는 이들 천체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삼중적(三重的) 빛의 근원이고, 그 영향은, 전적으로는

you are sons of God as well as ascenders — and you are even more. But there will always remain one seventh of Sonarington, the sector of the incarnation secrets of the divine Sons, which will not be open to your scrutiny. Never will those secrets be revealed to the ascendant sons of God.

13:2.7 (148.6) Eventually you will have full access to Ascendington and relative access to the other spheres of the Father except Divinington. But even when you are granted permission to land on five additional secret spheres, after you have become a finaliter, you will not be allowed to visit all sectors of such worlds. Nor will you be permitted to land on the shores of Divinington, the “bosom of the Father,” though you shall surely stand repeatedly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Never throughout all eternity will there arise any necessity for your presence on the world of the Thought Adjusters.

13:2.8 (149.1) These rendezvous worlds of spirit life are forbidden ground to the extent that we are asked not to negotiate entrance to those phases of these spheres which are wholly outside our realms of experience. You may become creature perfect even as the Universal Father is deity perfect, but you may not know all the experiential secrets of all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When the Creator has an experiential personality secret with his creature, the Creator preserves that secret in eternal confidence.

13:2.9 (149.2) All these secrets are supposedly known to the collective body of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se beings are fully known only by their special world groups; they are little comprehended by other orders. After you attain Paradise, you will know and ardently love the ten Secrets of Supremacy who direct Ascendington. Excepting Divinington, you will also achieve a partial understanding of the Secrets of Supremacy on the other worlds of the Father, though not so perfectly as on Ascendington.

13:2.10 (149.3)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as their name might suggest, are related to the Supreme; they are likewise related to the Ultimate and to the future Supreme-Ultimate. These Secrets of Supremacy are the secrets of the Supreme and also the secrets of the Ultimate, even the secrets of the Supreme-Ultimate.

3. THE SACRED WORLDS OF THE ETERNAL SON

13:3.1 (149.4) The seven luminous spheres of the Eternal Son are the worlds of the seven phases of pure-spirit existence. These shining orbs are the source of the threefold light of Paradise and

아니지만, 대부분 중앙우주에 한정된다.

개인성은 이 파라다이스 위성들 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순수-영 거주지에 관계하여 필사자와 물질적 개인성에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세계들이 영원한 아들의 존재들의 개인성-이외-다른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배웠다. 우리는 이 실존개체들이 외부우주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새 우주 안에서 사명활동을 위해 모이고 있다고 들었다.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억년이 되는, 각각의 파라다이스 주기마다 영원한 아들의 그 비밀 세계들에서 이 계층들에 해당하는 추가적 예비들이 창조되는 것을 본다고 주장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한 아들의 이 구체 중 어느 곳에도 개인성이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나는 파라다이스의 안과 밖에서의 나의 모든 긴 체험에서 이 세계들 중 어느 하나에도 방문하도록 예정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영원한 아들에 의해 공동창조된 개인성들도 이 세계들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미(未)개인적 영들이—비율에 상관없이—영 고향에 가도록 허용된다고 추측한다. 나는 개인이고 그리고 영 형태를 가졌으므로, 설혹 그곳에 방문해 가 보도록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어 있고 황폐한 것처럼 보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높은 영 개인성들은 무의미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순전히 쓸모없는 모험심에 몰두하지 않는다. 무익하거나 실체적이지 않은 그러한 구체적인 투사들에 대한 어떤 큰 흥미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기에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모험여행이 항상 있다.

제 4 장. 무한한 영의 세계들

하보나의 내부 순환회로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 사이에는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 영화롭게 된 피조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이, 그리고 우주 활동들의 다양한 영역의 많은 사업의 효력적인 관리-행정에 관여하는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기타 유형들이 거주하는 세계들, 무한한 영의 일곱 천체들이 돌고 있다.

일곱 주(主) 영들은 무한한 영의 최극 그리고 궁극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가장 자리에 그들의 개인 거점들, 그들의 힘 진원지를 유지하지만, 대우주에 대한 그들의 관리와 지도에 관련된 모든 운영들은 무한한 영의 이 일곱 특별 집행 구체들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행위로써 수행된다. 일곱 주(主) 영들은, 실체로서, 우주들의 우주의 마음-영 평형 바퀴, 모든 것을-포용하는, 모든 것을-에워싸는, 그리고 모든 것을-조화-협동시키는 중앙 위치의 힘이다.

주(主) 영들은 이 일곱 개의 특별한 구체들로부터 대우주의 조화우주-마음 순환회로들을 동등

Havona, their influence being largely, but not wholly, confined to the central universe.

13.3.2 (149.5) Personality is not present on these Paradise satellites; therefore is there little concerning these pure-spirit abodes which can be presented to the mortal and material personality. We are taught that these worlds teem with the otherwise-than-personal life of the beings of the Eternal Son. We infer that these entities are being assembled for ministry in the projected new universes of outer space. The Paradise philosophers maintain that each Paradise cycle, about two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witnesses the creation of additional reserves of these orders on the secret worlds of the Eternal Son.

13.3.3 (149.6) As far as I am informed, no personality has ever been on any one of these spheres of the Eternal Son. I have never been assigned to visit one of these worlds in all my long experience in and out of Paradise. Even the personalities cocreated by the Eternal Son do not go to these worlds. We infer that all types of impersonal spirits — regardless of parentage — are admitted to these spirit homes. As I am a person and have a spirit form, no doubt such a world would seem empty and deserted even if I were permitted to pay it a visit. High spirit personalities are not given to the gratification of purposeless curiosity, purely useless adventure. There is at all times altogether too much intriguing and purposeful adventure to permit the development of any great interest in those projects which are either futile or unreal.

4. THE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13.4.1 (149.7) Between the inner circuit of Havona and the shining spheres of the Eternal Son there circle the seven orbs of the Infinite Spirit, worlds inhabited by the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by the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created personalities, and by other types of unrevealed beings concerned with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e many enterprises of the various realms of universe activities.

13.4.2 (150.1)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supreme and ultimate representative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maintain their personal stations, their power focuses, on the periphery of Paradise, but all operations concerned with their management and direction of the grand universe are conducted on and from these seven special executiv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reality, the mind-spirit balance whee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 all-embracing, all-encompassing, and all-co-ordinating power of central location.

13.4.3 (150.2) From these seven special spheres the Master Spirits operate to equalize and stabilize the

하게하고 안정시키려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대우주에 두루 신(神)들의 서로 다른 영적 태도와 현존과 더불어 행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 반작용들은 균일하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즉시적이고 자동적이다. 그러나 체험적인 영적 현존은, 영역들의 개별존재 마음 안에 선천적인, 영적 접수성의 기초를 이루는 조건이나 상태에 따르는 것이다.

모든 우주들에서, 크고 작던, 물리적 권한, 현존 그리고 기능들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영적 현존 또는 반응에서 차이 나는 요소는, 의지 창조체들이 그 인식과 수용에서 동요하고 있는 차이들이다.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신(神)의 영적 현존이, 창조된 존재들 편에서의 충성 또는 불충성 태도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이와 동시에 하위-절대이고 체험적인 신(神)의 기능적 현존은, 그러한 유한 피조 존재들의 결정, 선택 그리고 의지-태도에 의해-개별 존재,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의 충성과 헌신에 따라-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의 영적 현존은 예측 불허이거나 제멋대로가 아니다; 그것의 체험적 변화는 개인적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자질에 선천적인 것이다.

영적 현존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의 가슴과 마음 속에 있으며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선택의 방법에, 너희 마음의 결정에, 그리고 너희 자신의 의지의 결심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적 개인 존재들, 곧 이러한 선택의 해방을 행사할 우주 아버지가 정한 바 있는 존재들의 자유의지 반응에서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신(神)들은 창조체 선택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조건에 따르고 요구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의 밀물과 썰물을 내보낼 때 언제까지나 진실하다, 자신들의 창조체가 자신들이 신성하게 증여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때 진지한 갈망에 응답하여 더욱 더 자신들의 현존을 즉시 증여하고, 마찬가지로 그만큼 역으로 결정하는 무대에서는 되돌아 자신들을 철수시킨다. 그렇게 신성의 영은 영역의 창조체들의 선택에 겸손하게 순종한다.

일곱 주(主) 영들의 집행적 거주지들은, 실체이며, 일곱 초우주들과 외부 공간 안에서 그들에 상관관계된 부분들의 파라다이스 본부이다. 각 주(主) 영은 하나의 초우주를 주재하며, 이 일곱 세계들 각각은 그 주(主) 영들 중 하나에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 집행적 세계들에서 돌보고 있지 않은 일곱 초우주의 하위(下位)-파라다이스 관리-행정의 위상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아버지의 구체들 또는 아들의 구체들처럼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비록 거주 지위가 토착 존재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이 일곱 관리-행정적 행성들은 그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cosmic-mind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They also have to do with the differential spiritual attitude and presence of the Deitie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Physical reactions are uniform, unvarying, and always instantaneous and automatic. But experiential spiritual presence is in accordance with the underlying conditions or states of spiritual receptivity inherent in the individual minds of the realms.

13:4.4 (150.3) Physical authority, presence, and function are unvarying in all the universes, small or great. The differing factor in spiritual presence, or reaction, is the fluctuating differential in its recognition and reception by will creatures. Whereas the spiritual presence of absolute and existential Deity is in no manner whatever influenced by attitudes of loyalty or disloyalty on the part of created beings, at the same time it is true that the functioning presence of subabsolute and experiential Deity is definitely and directly influenced by the decisions, choices, and will-attitudes of such finite creature beings — by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individual being,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universe. But this spiritual presence of divinity is not whimsical nor arbitrary; its experiential variance is inherent in the freewill endowment of personal creatures.

13:4.5 (150.4) The determiner of the differential of spiritual presence exists in your own hearts and minds and consists in the manner of your own choosing, in the decisions of your minds, and in the determination of your own wills. This differential is inherent in the freewill reactions of intelligent personal beings, beings whom the Universal Father has ordained shall exercise this liberty of choosing. And the Deities are ever true to the ebb and flow of their spirits in meeting and satisfying the conditions and demands of this differential of creature choice, now bestowing more of their presence in response to a sincere desire for the same and again withdrawing themselves from the scene as their creatures decide adversely in the exercise of their divinely bestowed freedom of choice. And thus does the spirit of divinity become humbly obedient to the choosing of the creatures of the realms.

13:4.6 (150.5) The executive abod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reality,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ir correlated segments in outer space. Each Master Spirit presides over one superuniverse, and each of these seven worlds is exclusively assigned to one of the Master Spirits. There is literally no phase of the sub-Paradise administr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hich is not provided for on these executive worlds. They are not so exclusive as the spheres of the Father or those of the Son, and though residential status is limited to native beings and those who work thereon, these seven administrative planets are

나에게, 이들 집행 세계들은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파라다이스 외부 지점들이다. 어떤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차원들, 동시에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업무들에서 운영을 행해야하는 많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살아있는 존재들이 포함되는,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누군가가 관찰할 수 있는 곳은 넓은 우주 안에서는 없다, 내가 직책으로부터 일정기간 풀려 날 때, 만일 어쩌다가 내가 파라다이스 또는 하보나에 있다면, 나는 대개 이 일곱 주(主) 영들의 바쁜 세계들 중 하나에 가고, 그곳에서 그러한 사업, 헌신, 충성, 지혜, 그리고 효율성의 광경들로 나의 마음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나는 우주 실체의 모든 일곱 차원들에서 벌어지는 개인성 행위의 그러한 놀라운 상호작용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즐기는 그들의 활동에 의해 항상 자극을 받는다.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이렇게 기능하라고 명령을 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always open to all beings who desire to visit them, and who can command the necessary means of transit.

13:4.7 (151.1) To me, these executive worlds are the most interesting and intriguing spots outside of Paradise. In no other place in the wide universe can one observe such varied activities, involving so many different orders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operations on so many diverse levels, occupations at onc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When I am accorded a period of release from assignment, if I chance to be on Paradise or in Havona, I usually proceed to one of these busy world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re to inspire my mind with such spectacles of enterprise, devotion, loyalty, wisdom, and effectiveness. Nowhere else can I observe such an amazing interassociation of personality performances on all seven levels of universe reality. And I am always stimulated by the activities of those who well know how to do their work, and who so thoroughly enjoy doing it.

13:4.8 (151.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14 편 중앙이며 신성한 우주

⇨ 013

유랜시아 책

015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4 편 중앙이며 신성한 우주

섹션

소개

제 1 장.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

제 2 장. 하보나의 구조

제 3 장. 하보나 세계들

제 4 장. 중앙우주의 창조체

제 5 장. 하보나에서의 삶

제 6 장. 중앙우주의 목적

PAPER 14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dise-Havona System

2. Constitution of Havona

3. The Havona Worlds

4.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5. Life in Havona

6. The Purpose of the Central Universe

소개

완전하고도 신성한 우주가 모든 창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 둘레에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창조계들이 회전하고 있는 영원한 핵이다. 파라다이스는 장엄한 영원 우주의 바로 중심부에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절대 안정성의 거대한 핵심 섬이다. 이 중앙 행성 가족은 하보나라고 불리며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은 거대한 규모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질량을 가지며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과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10억 개의 구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광대한 창조의 규모는 실제로 인간 마음의 납득, 파악을 뛰어넘어서는 실체이다.

이것은 하나이며 유일한 정착되고 완전하고 확립된 세계들의 집단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창조된 완전한 우주이다; 진화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의 영원한 핵이며, 그 둘레에는 거대한 진화적 실험 곧, 원형틀 우주, 신성한 완성의 이상, 최극적 최종, 궁극적 실체, 그리고 영원한 완전을 시간 속에서 복제하고 그리고 공간 속에서 재생산하려고 열망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들의 대담한 모험을 구성하는, 그러한 진화적 실험을 이루고 있는 우주들의 끝없는 행렬이 소용

INTRODUCTION

14:0.1 (152.1) THE perfect and divine universe occupies the center of all creation; it is the eternal core around which the vast creations of time and space revolve. Paradise is the gigantic nuclear Isle of absolute stability which rests motionless at the very heart of the magnificent eternal universe. This central planetary family is called Havona and is far-distant from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t is of enormous dimensions and almost unbelievable mass and consists of one billion spheres of unimagined beauty and superb grandeur, but the true magnitude of this vast creation is really beyond the understanding grasp of the human mind.

14:0.2 (152.2) This is the one and only settled, perfect, and established aggregation of worlds. This is a wholly created and perfect universe; it is not an evolutionary development. This is the eternal core of perfection, about which swirls that endless procession of universes which constitute the tremendous evolutionary experiment, the audacious adventure of the Creator Sons of God, who aspire to duplicate in time and to reproduce in space the pattern universe, the ideal of divine completeness, supreme finality, ultimate reality,

돌이치고 있다.

and eternal perfection.

제 1 장.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로부터 일곱 초우주들의 내부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일곱 공간 조건들과 운동들이 있다:

1. 파라다이스에 맞닿은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
2. 세 파라다이스 및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시계방향 행렬.
3. 중앙우주의 암흑중력체들로부터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구분시키는 반(半)고요 공간 지대.
4. 암흑중력체들의 시계반대방향-움직임 띠 내부,
5. 암흑중력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구분하는 독특한 두 번째 공간 지대.
6. 파라다이스 둘레를 시계방향으로 도는,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띠.
7. 세 번째 공간 지대—반(半)고요 지대—, 일곱 초우주들의 가장 안쪽 순환회로들과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띠를 분리시키는 것

하보나의 10억 개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세 순환회로들을 곧 바로 감싸고 있는 일곱 동심(同心) 순환회로들 속에 배열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회로에는 3,500만개를 상회하는 세계들이 있고 가장 외부에는 2억 4,500만개 이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 비례하는 숫자가 있다. 각 순환회로가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있고 절묘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무한한 영의 특정화된 대표파견, 순환회로의 일곱 영 중의 한 분으로 가득 퍼져있다. 다른 기능들 이외에, 이 미(未)개인적 영은 각 순환회로에 두루 천상(天上) 관련사들의 행위성을 조화-협동시킨다.

하보나 행성의 순환회로들은 겹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세계들은 계층적으로 직선 행렬에서 서로 따른다. 중앙우주는, 10개의 안정된 동심(同心) 단위—파라다이스 구체의 세 순환회로와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순환회로들—를 이루면서 하나의 거대한 평면으로 고정된 파라다이스 섬 둘레를 소용돌이치고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하보나와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은 모두 하나이고 동일한 체계이다; 그들의 분리는 기능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격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시간은 파라다이스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건들의 순차는 중앙 섬에 토착민인 자들의 개념에서 선천적이다. 그러나 시간은 하보나

1. THE PARADISE-HAVONA SYSTEM

14.1.1 (152.3) From the periphery of Paradise to the inner bord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are the following seven space conditions and motions:

14.1.2 (152.4) 1. The quiescent midspace zones impinging on Paradise.

14.1.3 (152.5) 2. The clockwise processional of the three Paradise and the seven Havona circuits.

14.1.4 (152.6) 3. The semiquiet space zone separating the Havona circuits from the dark gravity bodies of the central universe.

14.1.5 (152.7) 4. The inner, counterclockwise-moving belt of the dark gravity bodies.

14.1.6 (152.8) 5. The second unique space zone dividing the two space paths of the dark gravity bodies.

14.1.7 (152.9) 6. The outer belt of dark gravity bodies, revolving clockwise around Paradise.

14.1.8 (152.10) 7. A third space zone — a semiquiet zone — separating the outer belt of dark gravity bodies from the innermost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4.1.9 (152.11)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are arranged in seven concentric circuit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three circuits of Paradise satellites. There are upwards of thirty-five million worlds in the innermost Havona circuit and over two hundred and forty-five million in the outermost, with proportionate numbers intervening. Each circuit differs, but all are perfectly balanced and exquisitely organized, and each is pervaded by a specialized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one of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In addition to other functions this impersonal Spirit co-ordinates the conduct of celestial affairs throughout each circuit.

14.1.10 (153.1) The Havona planetary circuits are not superimposed; their worlds follow each other in an orderly linear procession. The central universe whirls around the stationary Isle of Paradise in one vast plane, consisting of ten concentric stabilized units — the three circuits of Paradise spheres and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worlds. Physically regarded, the Havona and the Paradise circuits are all one and the same system; their separation is in recognition of functional and administrative segregation.

14.1.11 (153.2) Time is not reckoned on Paradise; the sequence of successive events is inherent in the concept of those who are indigenous to the central

순환회로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천상과 땅 그 모두에서 기원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각각의 하보나 세계는 그 순환회로에 의해 결정되는 그 자체의 지역시간을 갖고 있다. 주어진 순환회로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은 1년의 기간이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파라다이스 둘레를 일정하게 휘돌아 회전하기 때문이며, 이 행성 한 해의 길이는 가장 외부로부터 가장 내부 순환회로를 향해 줄어든다.

하보나-순환회로 시간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에서 결정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보내지는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 그리고 기타 시간 명칭들이 있다. 파라다이스-하보나 표준일은 하보나 순환회로의 첫 번째 곧 내부 순환회로의 행성 거주자들이 파라다이스 섬 둘레를 한 바퀴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길이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그들 속도가 크긴 하지만, 암흑중력체들과 거대한 파라다이스 사이에 자리 잡은 덕분에, 이들 구체들은 자신들의 순환회로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00년이 소요된다. 너희는 “밤에 한 번 보는 것처럼, 하느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는 말에 너희 눈이 멈추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다. 파라다이스-하보나 1일은 현재 유란시아 윤년 달력으로 1,000년보다 7분, 3과 8분의 1초만큼 짧다.

일곱 초우주들 각각이 비록 그 자신의 내부적 시간 표준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파라다이스-하보나 하루는 표준시간 측정값이다.

이 광대한 중앙우주의 변두리,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번째 띠보다 멀리 있는 바깥쪽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거대한 암흑 질량들은 많은 항목에서 다른 공간체들과 매우 다르다; 심지어는 형태에 있어서도 그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암흑중력체들은 빛을 반영하지도 흡수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물리적-에너지 빛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은 하보나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에워싸고 뒤덮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조차도 보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

암흑중력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침입에 의해 동등한 두 타원형 순환회로들로 나뉜다. 내부 띠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외부 띠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교대되는 운동 방향은, 암흑체들의 엄청난 질량과 함하여, 하보나 중력선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함으로서, 중앙우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완전하게 안정된 창조가 되게 한다.

암흑중력체들의 내부 행렬은 배열에서 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세 개의 순환적인 집단을 이룬다. 이 순환회로의 횡단 부분은 거의 같은 밀도의 세 동심원들로 보일 것이다. 암흑중력체들의 외부 순환회로는 수직으로 배열되는데, 내부 순환회로보다 10,000배 더 높다. 외부 순환회로의 위-아래

Isle. But time is germane to the Havona circuits and to numerous beings of both celestial and terrestrial origin sojourning thereon. Each Havona world has its own local time, determined by its circuit. All worlds in a given circuit have the same length of year since they uniformly swing around Paradise, and the length of these planetary years decreases from the outermost to the innermost circuit.

14:1.12 (153.3) Besides Havona-circuit time, there is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and other time designations which are determined on, and are sent out from,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Paradise-Havona standard day is based on the length of time required for the planetary abodes of the first or inner Havona circuit to complete one revolution around the Isle of Paradise; and though their velocity is enormous, owing to their situation between the dark gravity bodies and gigantic Paradise, it requires almost one thousand years for these spheres to complete their circuit. You have unwittingly read the truth when your eyes rested on the statement “A day is as a thousand years with God, as but a watch in the night.” One Paradise-Havona day is just seven minutes, three and one-eighth seconds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of the present Urantia leap-year calendar.

14:1.13 (153.4) This Paradise-Havona day is the standard time measurement for the seven superuniverses, although each maintains its own internal time standards.

14:1.14 (153.5) On the outskirts of this vast central universe, far out beyond the seventh belt of Havona worlds, there swirl an unbelievable number of enormous dark gravity bodies. These multitudinous dark masses are quite unlike other space bodies in many particulars; even in form they are very different. These dark gravity bodies neither reflect nor absorb light; they are nonreactive to physical-energy light, and they so completely encircle and enshroud Havona as to hide it from the view of even near-by inhabited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1.15 (153.6) The great belt of dark gravity bodies is divided into two equal elliptical circuits by a unique space intrusion. The inner belt revolves counterclockwise; the outer revolves clockwise. These alternate directions of motion, coupled with the extraordinary mass of the dark bodies, so effectively equalize the lines of Havona gravity as to render the central universe a physically balanced and perfectly stabilized creation.

14:1.16 (153.7) The inner procession of dark gravity bodies is tubular in arrangement, consisting of three circular groupings. A cross section of this circuit would exhibit three concentric circles of about equal density. The outer circuit of dark gravity bodies is arranged perpendicularly, being

직경은 가로지르는 직경의 그것보다 50,000배에 달한다.

중력체들의 이 두 순환회로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은 광대한 전체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이 시대는 오르내리는 본성을 갖는 거대한 파동 운동으로 특징을 보이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계층의 엄청난 에너지 활동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 견해로는, 중앙우주의 암흑중력체들과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외부 우주 차원들의 미래 진화를 특징짓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놀랄만한 중력-평형 본체들의 이들 교대 행렬이 주(主)우주에서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ten thousand times higher than the inner circuit. The up-and-down diameter of the outer circuit is fifty thousand times that of the transverse diameter.

14:1.17 (154.1) The intervening space which exists between these two circuits of gravity bodies is *unique* in that nothing like it is to be found elsewhere in all the wide universe. This zone is characterized by enormous wave movements of an up-and-down nature and is permeated by tremendous energy activities of an unknown order.

14:1.18 (154.2) In our opinion, nothing like the dark gravity bodies of the central universe will characterize the future evolution of the outer space levels; we regard these alternate processions of stupendous gravity-balancing bodies as unique in the master universe.

제 2 장. 하보나의 구조

영 존재들은 성운 공간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기와 같은 세계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적 본성의 실제적 구체,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것들과 똑같이 실제 세계에서 산다. 하보나 세계들은 실제적이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사실적 본체는 일곱 초우주 행성들의 물질 조직과는 다르다.

하보나의 물리적 실체들은 공간의 진화 우주들 안에 가득 퍼져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직 계층을 대표한다. 하보나 에너지들은 삼중(三重)적이다; 에너지-물질의 초우주 단위들은, 에너지의 한 형태가 음성과 양성 위상으로 존재하지만, 이중적 에너지 전하(電荷)를 띤다. 중앙우주의 창조는 삼중적(삼위일체)이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한 지역우주의 창조는 (직접적으로) 이중적이다.

하보나의 물질은 정확하게 1,000개의 기초 화학 원소들의 조직과 하보나 에너지의 일곱 형태의 균형 잡힌 기능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기초 에너지들은 일곱 위상의 자극작용을 현시하는데, 그리하여 하보나 원주민들은 49개의 서로 다른 감각작용 충동에 응답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순수한 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앙우주의 원주민들은 감각작용에서의 49개의 특별한 형태들을 갖는다. 모론시아 감각들은 70개이고, 더 높은 영적 반응 계층들은 응답이 존재의 서로 다른 유형에서 70개에서 210개까지 변한다.

중앙우주의 어떤 물리적 존재들도, 유란시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세계들의 어떤 물리적 자극도 너희의 조잡한 감각 기관 안에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유란시아 필사자가 하보나로

2. CONSTITUTION OF HAVONA

14:2.1 (154.3) Spirit beings do not dwell in nebulous space; they do not inhabit ethereal worlds; they are domiciled on actual spheres of a material nature, worlds just as real as those on which mortals live. The Havona worlds are actual and literal, albeit their literal substance differs from the material organization of the plane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4:2.2 (154.4) The physical realities of Havona represent an order of energy organization radically different from any prevailing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space. Havona energies are threefold; superuniverse units of energy-matter contain a twofold energy charge, although one form of energy exists in negative and positive phases. The creation of the central universe is threefold (Trinity); the creation of a local universe (directly) is twofold, by a Creator Son and a Creative Spirit.

14:2.3 (154.5) The material of Havona consists of the organization of exactly one thousand basic chemical elements and the balanced function of the seven forms of Havona energy. Each of these basic energies manifests seven phases of excitation, so that the Havona natives respond to forty-nine differing sensation stimuli. In other words, viewed from a purely physical standpoint, the natives of the central universe possess forty-nine specialized forms of sensation. The morontia senses are seventy, and the higher spiritual orders of reaction response vary in different types of beings from seventy to two hundred and ten.

14:2.4 (154.6) None of the physical beings of the central universe would be visible to Urantians. Neither would any of the physical stimuli of those faraway worlds excite a reaction in your gross sense organs. If a Urantia mortal could be transported to Havona, he would there be deaf,

옮겨질 수 있다면, 그는 거기에서 귀가 멀고 앞을 보지 못하며 모든 다른 감각 반응을 철저히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환경 자극과 그에 따른 모든 반응을 빼앗긴, 한정된 자아-의식 존재로서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창조에는,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리적 현상들과 영적 반응들이 있다. 삼중(三重) 창조의 기본 조직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피조 우주들의 이중적 구조의 그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진화하고 있는 창조계의 이원(二元)-에너지 체계에 비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기초 위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조화-협동된다. 중앙우주 전체는 완전하고도 대칭된 통제의 삼중적 체계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다. 전체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두루, 모든 조화우주 실체들과 모든 영적 기체들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물질적 창조에 대한 절대적 장악과 함께, 이 중앙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을 완전하게 규제하고 유지한다; 영원한 아들은, 그의 전체를-포용하는 영 장악의 일부로써, 하보나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영적 지위를 가장 완전하게 지탱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적이지 않으며,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창조적 완전의 단위이다.

영원한 아들의 우주적인 영적 중력은 중앙우주에 두루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다. 모든 영 가치들과 영적 개인성들은 하느님들의 거주지를 향해 안쪽으로 끊임없이 당겨진다. 하느님을 향함이 충동은 강렬하고 회피할 수 없다. 하느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중앙우주에서 더 강한 것은, 영 중력이 밖에 있는 우주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보나에 도달한 그 존재들이 더욱 충만하게 영성화 되고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의 당기는 우주 영-중력의 언제까지나-제시되어있는 활동에 더욱 많이 응답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모든 지적 가치들을 파라다이스 쪽으로 끌어당긴다. 중앙우주에 두루, 무한한 영의 마음 중력이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과의 연락 안에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神)을 달성하고, 파라다이스를 성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상승하는 혼들의 병합된 충동을 구성한다.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이다. 중앙우주의 통제와 균형 잡힌 안정성은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예견될 수 있지만, 마음 현상과 개인성 의지작용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가 발생 불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추론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보나의 원주민 자유의지 창조체들이 신(神)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는 근거 하에서이다. 영원에 두루 이 뛰어난 존재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

blind, and utterly lacking in all other sense reactions; he could only function as a limited self-conscious being deprived of all environmental stimuli and all reactions thereto.

14:2.5 (154.7) There are numerous physical phenomena and spiritual reactions transpiring in the central creation which are unknown on worlds such as Urantia. The basic organization of a threefold creation is wholly unlike that of the twofold constitution of the created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2.6 (154.8) All natural law is co-ordinated on a basis entirely different than in the dual-energy systems of the evolving creations. The entire central universe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threefold system of perfect and symmetrical control. Throughout the whole Paradise-Havona system there is maintained a perfect balance between all cosmic realities and all spiritual forces. Paradise, with an absolute grasp of material creation, perfectly regulates and maintains the physical energies of this central universe; the Eternal Son, as a part of his all-embracing spirit grasp, most perfectly sustains the spiritual status of all who indwell Havona. On Paradise nothing is experimental, and the Paradise-Havona system is a unit of creative perfection.

14:2.7 (155.1) The universal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is amazingly active throughout the central universe. All spirit values and spiritual personalities are unceasingly drawn inward towards the abode of the Gods. This Godward urge is intense and inescapable. The ambition to attain God is stronger in the central universe, not because spirit gravity is stronger than in the outlying universes, but because those beings who have attained Havona are more fully spiritualized and hence more responsive to the ever-present action of the universal spirit-gravity pull of the Eternal Son.

14:2.8 (155.2) Likewise does the Infinite Spirit draw all intellectual values Paradiseward. Throughout the central universe the mind gravity of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in liaison with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and these together constitute the combined urge of the ascendant souls to find God, to attain Deity, to achieve Paradise, and to know the Father.

14:2.9 (155.3) Havona is a spiritually perfect and physically stable universe. The control and balanced stability of the central universe appear to be perfect. Everything physical or spiritual is perfectly predictable, but mind phenomena and personality volition are not. We do infer that sin can be reckoned as impossible of occurrence, but we do this on the ground that the native freewill creatures of Havona have never been guilty of transgressing the will of Deity. Through all eternity

에게 일관되게 충성을 바쳐 왔다. 뿐만 아니라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들어온 어떤 창조체도 잘못된 행위성을 나타낸 적이 없다. 하보나 중앙우주에서 창조된 또는 거기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개인성들의 어떤 집단에 해당하는 어떤 창조체도 부정을 범한 예가 결코 없었다. 시간의 우주들에서의 선택의 방법과 수단들이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하보나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잘못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어떤 오류도 범해진 적이 없다; 어떤 상승하는 혼도 미숙한 상태로 중앙우주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제 3 장. 하보나 세계들

중앙우주의 정부에 관해 말하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보나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완전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지적 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회의도 없다; 하보나는 오직 행정-관리적 지도만을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참된 자아-관리의 이상들의 정점이 관찰될 수 있다.

그렇게 완전한 그리고 거의-완전한 지능체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는 그들이 초우주들의 최극 법정의 정밀검사를 오래 전에 통과한 진화 창조체와 섞여있는 태생적으로 완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보나의 관리-행정은 자동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과적이다. 그것은 주로 행성 단위로 그리고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주어져 있다, 각 하보나 구체는 이들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 중 하나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영원으로 늘 계신이들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관리-행정자이다. 그들은 최극 기술로 가르치고 절대성에 가까운 지혜의 완전으로 그들의 행성자녀들을 지도한다.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에서 태어난 높은 개인성들에 대한 훈련 세계들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화적인 시간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최종적 증명 장소로 쓰인다. 창조체 상승이라는 우주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이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외부 곧 접수세계들 위에 도착하며, 증가된 훈련과 커지게 된 체험에 뒤이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신(神)을 달성하고 파라다이스에서의 거주를 성취할 때까지, 그들은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그리고 순환회로에서 순환회로로, 안쪽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진보하며 나아간다.

현재, 일곱 순환회로의 구체들이 그들의 모든 숭고한 영광 속에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행성 수용력 중 오직 1퍼센트만이 필사자 상승이라는 아버지의 우주적 계획을 촉진시키는 일에 활용된다. 이 거대한 세계들의 1퍼센트 중 약 10분의 1지역

these supernal beings have been consistently loyal to the Eternals of Days. Neither has sin appeared in any creature who has entered Havona as a pilgrim. There has never been an instance of misconduct by any creature of any group of personalities ever created in, or admitted to, the central Havona universe. So perfect and so divine are the methods and means of selection in the universes of time that never in the records of Havona has an error occurred; no mistakes have ever been made; no ascendant soul has ever been prematurely admitted to the central universe.

3. THE HAVONA WORLDS

14:3.1 (155.4) Concerning the government of the central universe, there is none. Havona is so exquisitely perfect that no intellectual system of government is required. There are no regularly constituted courts, neither are there legislative assemblies; Havona requires only administrative direction. Here may be observed the height of the ideals of true self-government.

14:3.2 (155.5) There is no need of government among such perfect and near-perfect intelligences. They stand in no need of regulation, for they are beings of native perfection interspersed with evolutionary creatures who have long since passed the scrutiny of the supreme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s.

14:3.3 (155.6) The administration of Havona is not automatic, but it is marvelously perfect and divinely efficient. It is chiefly planetary and is vested in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each Havona sphere being directed by one of these Trinity-origin personalities. Eternals of Days are not creators, but they are perfect administrators. They teach with supreme skill and direct their planetary children with a perfection of wisdom bordering on absoluteness.

14:3.4 (156.1) The billion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constitute the training worlds of the high personalities native to Paradise and Havona and further serve as the final proving grounds for ascending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In the execution of the Universal Father's great plan of creature ascension the pilgrims of time are landed on the receiving worlds of the outer or seventh circuit, and subsequent to increased training and enlarged experience, they are progressively advanced inward, planet by planet and circle by circle, until they finally attain the Deities and achieve residence on Paradise.

14:3.5 (156.2) At present, although the spheres of the seven circuits are maintained in all their supernal glory, only about one per cent of all planetary capacity is utilized in the work of furthering the Father's universal plan of mortal ascension. About

은, 하보나 세계들 위에 종종 머물고 사명활동하는 빛과 생명 속에 영원히 정착된 존재들, 최후의 무리단의 삶과 활동에 전념되어 있다. 이들 드높여진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위에 그들의 개인 거주지를 갖는다.

하보나 구체들의 행성 구조는 공간의 진화 세계들과 체계들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르다. 모든 대우주 안에서 어느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거대한 구체들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곳은 없다. 삼력소(三力素) 물리적 구조물은, 거대한 암흑중력체들의 평형 효과와 함께, 물리적 기체들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균등하게 만들고 이 거대한 창조의 다양한 인력(引力)들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평형시킬 수 있게 한다. 반(反)중력도 또한 물질적 기능의 조직에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들의 영적 활동에 이용된다.

하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그리고 예술적 장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안건축물, 빛 그리고 열은 인간의 상상이 뻗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훨씬 벗어난다. 하보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납득하려면 직접 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완전한 세계들에 실제 강과 호수들이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중앙우주 안에서 기능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지내게 하는 그들의 목적에 안정맞춤이다. 인간의 이해력을 크게 뛰어넘는 각가지 활동들이 이 아름다운 세계들에서 이루어진다.

one tenth of one per cent of the area of these enormous worlds is dedicated to the life and activitie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beings eter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who often sojourn and minister on the Havona worlds. These exalted beings have their personal residences on Paradise.

14:3.6 (156.3) The planetary construction of the Havona spheres is entirely unlike that of the evolutionary worlds and systems of space. Nowhere else in all the grand universe is it convenient to utilize such enormous spheres as inhabited worlds. Triata physical constitution, coupled with the balancing effect of the immense dark gravity bodies, makes it possible so perfectly to equalize the physical forces and so exquisitely to balance the various attractions of this tremendous creation. Antigravity is also employ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functions and the spiritual activities of these enormous worlds.

14:3.7 (156.4) The architecture, lighting, and heating, as well as the biologic and artistic embellishment, of the Havona spheres, are quite beyond the greatest possible stretch of human imagination. You cannot be told much about Havona; to understand its beauty and grandeur you must see it. But there are real rivers and lakes on these perfect worlds.

14:3.8 (156.5) Spiritually these worlds are ideally appointed; they are fittingly adapted to their purpose of harboring the numerous orders of differing beings who function in the central universe. Manifold activities take place on these beautiful worlds which are far beyond human comprehension.

제 4 장. 중앙우주의 창조체

하보나 세계들에는 기본적인 일곱 가지 형태의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이 있으며, 이 기본 형태들 각각은 세 가지 다른 위상으로 존재한다. 이 세 위상들 각각은 70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큰 부분은 1,000개의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하위 부분들이 계속 존재한다. 이 기본 생명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 물질적.
2. 모론시아적.
3. 영적.
4. 아(亞)절대적.
5. 궁극적.
6. 상호 절대적.
7. 절대적.

4.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14:4.1 (156.6) There are seven basic forms of living things and beings on the Havona worlds, and each of these basic forms exists in three distinct phases. Each of these three phases is divided into seventy major divisions, and each major division is composed of one thousand minor divisions, with yet other subdivisions, and so on. These basic life groups might be classified as:

14:4.2 (156.7) 1. Material.

14:4.3 (156.8) 2. Morontial.

14:4.4 (156.9) 3. Spiritual.

14:4.5 (156.10) 4. Absonite.

14:4.6 (156.11) 5. Ultimate.

14:4.7 (156.12) 6. Coabsolute.

14:4.8 (156.13) 7. Absolute.

하보나 세계들에서는 쇠퇴와 죽음이 생명의 순환주기의 일부분이 아니다. 중앙우주에서 보다 낮은 살아있는 물체들은 물질화의 변형을 겪는다. 그들은 형태와 현시활동을 바꾸지만, 쇠퇴와 세포의 죽음의 과정으로 분해되지는 않는다.

하보나 원주민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그들에게는 창조 부모들이 없으며 재생산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중앙우주의 이들 시민, 전혀 창조된 바가 없는 존재들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다. 하보나의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필사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듯 시간이나 공간과 관계가 없는 하나의 영원 사실을 시간-공간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 철학에 기원의 출발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인성들도 “시작”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보나,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하보나의 원주민들은, 영구 시민의 다른 계층들이 그들의 태어난 해당구체에 거주한다는 동일한 감각에서,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들 위에서 산다. 아들관계를 갖는 물질적 계층의 존재들이 초우주 안에서 10억 지역체계들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질서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처럼, 좀 더 큰 개념에서, 하보나 원주민들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들 위에서 살고 기능한다. “물질적”이란 말이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들을 묘사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감각에서는, 너희는 이 하보나 존재들을 물질적 창조체들로 볼 수도 있다.

하보나에서 출생하고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의의(意義)를 갖는 삶이 있다. 하보나인들은 파라다이스 하강자들과 그리고 초우주 상승자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사명활동하지만, 그들은 또한 중앙우주에 독특한 그리고 파라다이스 또는 초우주들과는 상당히 독립된 상대적 의미를 갖는 삶들을 산다.

진화 세계들의 신앙 아들들의 경배가 우주 아버지의 사랑의 만족에 대한 사명활동과 마찬가지로, 하보나 창조체들의 드높여진 찬미는 그렇게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의 완전한 이상들을 만족하게 한다.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분투하듯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상들에 만족하려고 산다. 그들의 바로 그 본성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뜻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선(善)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고, 하보나인들은 신성한 아름다움 안에서 환희를 누린다, 한편 너희 모두는 살아있는 진리의 해방의 사명활동을 모두 누린다.

하보나인들은 선택적인 현재 운명과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우주에만 특별히 있는 고유한 원주민 창조체들의 진보, 파라다이스를 향한 상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초우주들로의 진출도 아닌 것에 관계된 진보가 있다. 상급 하보나 지위로 이르는 이 진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14.4.9 (157.1) Decay and death are not a part of the cycle of life on the Havona world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lower living things undergo the transmutation of materialization. They do change form and manifestation, but they do not resolve by process of decay and cellular death.

14.4.10 (157.2) The Havona natives are all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without creature parents, and they are nonreproducing beings. We cannot portray the creation of these citizens of the central universe, beings who never were created. The entire story of the creation of Havona is an attempt to time-space an eternity fact which has no relation to time or space as mortal man comprehends them. But we must concede human philosophy a point of origin; even personalities far above the human level require a concept of “beginnings.” Nevertheless, the Paradise-Havona system is eternal.

14.4.11 (157.3) The natives of Havona live on the billion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in the same sense that other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dwell on their respective spheres of nativity. As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carries on the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economy of a billion local systems in a superuniverse, so, in a larger sense, do the Havona natives live and function on the billion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You might possibly regard these Havoners as material creatures in the sense that the word “material” could be expanded to describe the physical realities of the divine universe.

14.4.12 (157.4) There is a life that is native to Havona and possesses significance in and of itself. Havoners minister in many ways to Paradise descenders and to superuniverse ascenders, but they also live lives that are unique in the central universe and have relative meaning quite apart from either Paradise or the superuniverses.

14.4.13 (157.5) As the worship of the faith s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minist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s love, so the exalted adoration of the Havona creatures satiates the perfect ideals of divine beauty and truth. As mortal man strives to do the will of God, these beings of the central universe live to gratify the ideals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ir very nature they are the will of God. Man rejoices in the goodness of God, Havoners exult in the divine beauty, while you both enjoy the ministry of the liberty of living truth.

14.4.14 (157.6) Havoners have both optional present and future unrevealed destinies. And there is a progression of native creatures that is peculiar to the central universe, a progression that involves neither ascent to Paradise nor penetration of the superuniverses. This progression to higher Havona status may be suggested as follows:

1. 첫 번째로부터 일곱 번째 순환회로까지 밖으로 향한 체험적 진보.

2. 일곱 번째로부터 첫 번째 순환회로까지 안으로 향한 진보.

3. 순환회로내부 진보—주어진 순환회로 세계들 안에서의 진보.

하보나 원주민들 이외에, 중앙우주의 거주자들은 다양한 우주 집단들—창조계에 두루 그들 부류에 대한 그리고 그들 부류에서의 충고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선생들—을 위한 원형들 존재의 수많은 등급을 포용한다. 모든 우주들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보나의 10억 세계의 어떤 하나에 살고있는 원형들 창조체의 어떤 하나의 계층의 계통을 따라 모양이 갖추어진다. 심지어 시간의 필사자들도 높은 곳에 있는 이들 원형들 구체의 외부 순환회로 위에, 창조체 실존의 그들의 목표와 이상들을 가진다.

그 다음에, 우주 아버지께 도달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며, 특별한 봉사 임무를 띠고 우주들 안에서 여기저기에 배정된다. 그리고 모든 하보나 세계에서는, 달성 후보자들이 발견될 것인데, 그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달성된 존재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 영적 발전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무한한 영은 한 무리의 개인성들,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 그리고 영적 관련자들의 세부사항들을 관리-운영하는, 은혜와 영광의 존재들에 의해 하보나 세계들에서 대표된다. 신성한 완전의 이들 세계에서, 그들은 이 광대한 창조의 일상적 처리행위에 대한 도착적인 일을 수행하고, 덧붙여서, 우주의 어두운 공간 세계들로부터 영광을 향해 오르고 있는 엄청난 수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돌보는 각가지 과업들을 수행한다.

창조체 완전 성취라는 상승 기획과 어떤 면으로도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고유한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사 종족들에게 제시된 개인성 분류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초인간 존재들 중 오직 주요 집단들과 너희의 생존 체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계층들만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하보나는, 거기에서 최극 의미들, 궁극 가치들 그리고 절대 실체의 신성 실현과 커진 인식의 보다 높은 차원들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낮은 순환회로로부터 높은 순환회로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위상의 지능 존재들의 창조체로 가득 차 있다.

14.4.15 (157.7) 1. Experiential progress outward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circuit.

14.4.16 (157.8) 2. Progress inward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circuit.

14.4.17 (157.9) 3. Intracircuit progress — progression within the worlds of a given circuit.

14.4.18 (157.10) In addition to the Havona natives, the inhabitants of the central universe embrace numerous classes of pattern beings for various universe groups — advisers, directors, and teachers of their kind and to their kind throughout creation. All beings in all universes are fashioned along the lines of some one order of pattern creature living on some one of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Even the mortals of time have their goal and ideals of creature existence on the outer circuits of these pattern spheres on high.

14.4.19 (157.11) Then there are those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and who are entitled to go and come, who are assigned here and there in the universes on missions of special service. And on every Havona world will be found the attainment candidates, those who have physically attained the central universe, but who have not yet achieved that spiritual development which will enable them to claim Paradise residence.

14.4.20 (158.1) The Infinite Spirit is represented on the Havona worlds by a host of personalities, beings of grace and glory, who administer the details of the intricate intellectual and spiritual affairs of the central universe. On these worlds of divine perfection they perform the work indigenous to the normal conduct of this vast creation and, in addition, carry on the manifold tasks of teaching, training, and ministering to the enormous numbers of ascendant creatures who have climbed to glory from the dark worlds of space.

14.4.21 (158.2) There are numerous groups of beings native to the Paradise-Havona system that are in no way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scension scheme of creature perfection attainment; therefore are they omitted from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s presented to the mortal races. Only the major groups of superhuman beings and those orders directly connected with your survival experience are herein presented.

14.4.22 (158.3) Havona teems with the life of all phases of intelligent beings, who there seek to advance from lower to higher circuits in their efforts to attain higher levels of divinity realization and enlarged appreciation of supreme meanings, ultimate values, and absolute reality.

제 5 장. 하보나에서의 삶

5. LIFE IN HAVONA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물질적 실존의 너희 첫 삶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짧고도 격렬한 시험을 거친다. 맨션세계들에서 그리고 너희 체계와 별자리 그리고 지역우주를 지나 올라가면서, 너희는 상승하는 모론티아 위상들을 지나간다.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에서 너희는 진보의 참된 영 단계들을 거쳐 지나고 결국 생겨나는 하보나로의 변천을 위해 준비된다.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서 너희의 달성은 지적이고 영적이며 체험적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순환회로의 세계들 각각에는 성취되어야 할 분명한 과업이 있다.

중앙우주의 신성한 세계들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충만하며, 너무나도 완벽하고 풍부하여, 창조된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인간 개념을 전적으로 초월한다. 이 영원한 창조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들은 유란시아와 같은 진화 세계들에 사는 물질적 창조체들의 업무와 전반적으로 다르다. 하보나 생각의 기법조차도 유란시아에서의 사고(思考)의 과정과 같지 않다.

중앙우주의 규정들은 적절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연스럽다; 행위성의 법칙들은 제멋대로가 아니다. 하보나의 모든 요구사항에는 정의(正義)의 이성과 공의(公義)의 법칙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병합된 이 두 요소들은 유란시아에서 공정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 너희는 그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지능 존재들이 중앙우주에 처음 도달할 때, 그들은 일곱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거주한다. 새로 도착한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들의 초우주 주(主) 영의 정체성 이해를 달성하고, 그들은 여섯 번째 순환계로 옮겨진다. (인간 마음 안에서의 진보의 순환계로 지칭되는 것들은 중앙우주에서의 이러한 배열에서 유래한다.) 상승자들이 최극위의 실현을 달성하고 그리하여 신(神) 모험여행을 위해 준비된 후에, 그들은 다섯 번째 순환계로 옮겨진다; 무한한 영을 달성한 후에, 그들은 네 번째로 옮겨진다. 영원한 아들을 달성한 후에, 그들은 세 번째로 옮겨진다; 그들이 우주 아버지를 인식한 후에, 그들은 두 번째 순환회로의 세계들 위에 머물기 위하여 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 무리들과 더욱 친하게 된다. 하보나의 첫 번째 순환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의 후보자들이 파라다이스의 봉사에 승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창조체 상승의 기간과 본성에 따라, 그들은 진보하는 영적 달성의 내부 순환회로에 머물 것이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내부 순환회로로부터 파라다이스 거주와 최종의 무리단 가입을 향해 안쪽으로 통과한다.

너희가 상승하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너희는 너희가 배정된 그 순환회로의 세

14:5.1 (158.4) On Urantia you pass through a short and intense test during your initial life of material existence. On the mansion worlds and up through your system, constellation, and local universe, you traverse the morontia phases of ascension. On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you pass through the true spirit stages of progression and are prepared for eventual transit to Havona.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your attainment is intellectual, spiritual, and experiential. And there is a definite task to be achieved on each of the worlds of each of these circuits.

14:5.2 (158.5) Life on the divine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is so rich and full, so complete and replete, that it wholly transcends the human concept of anything a created being could possibly experience.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is eternal creation are entirely dissimilar to the occupations of material creatures living on evolutionary worlds like Urantia. Even the technique of Havona thought is unlike the process of thinking on Urantia.

14:5.3 (158.6) The regulation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fittingly and inherently natural; the rules of conduct are not arbitrary. In every requirement of Havona there is disclosed the reason of righteousness and the rule of justice. And these two factors, combined, equal what on Urantia would be denominated *fairness*. When you arrive in Havona, you will naturally enjoy doing things the way they should be done.

14:5.4 (158.7) When intelligent beings first attain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received and domiciled on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Havona circuit. As the new arrivals progress spiritually, attain identity comprehension of their superuniverse Master Spirit, they are transferred to the sixth circle. (It is from these arrangements in the central universe that the circles of progress in the human mind have been designated.) After ascenders have attained a realization of Supremacy and are thereby prepared for the Deity adventure, they are taken to the fifth circuit; and after attaining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transferred to the fourth.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Son, they are removed to the third; and when they have recognized the Universal Father, they go to sojourn on the second circuit of worlds, where they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Paradise hosts. Arrival on the first circuit of Havona signifies the acceptance of the candidates of time into the service of Paradise. Indefinitely, according to the length and nature of the creature ascension, they will tarry on the inner circuit of progressive spiritual attainment. From this inner circuit the ascending pilgrims pass inward to Paradise residence and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4:5.5 (159.1) During your sojourn in Havona as a pilgrim of ascent, you will be allowed to visit freely

계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전에 지나왔던 그 순환회로들의 행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것이 초(超)천사 품에 휩싸임이 필요 없이, 하보나의 순환회로에 머무는 자들에게 가능하다. 시간의 순례자들은 “성취된” 공간을 지나도록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공간을 다룰 때에는 예정된 기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례자는 운송 초(超)천사의 도움 없이는 하보나를 떠날 수도 없고, 그의 배치된 순환회로 너머 바깥으로 갈 수 없다.

이 광대한 중앙 창조에는 새롭게 하는 기원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지능 존재들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물체들의 기본적 계층들의 근본적 구성을 제외하고, 하보나의 세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 각각은 기원적이고 독특하며 배타적인 창조다; 각 행성은 비길 데 없고 뛰어나며 완전한 작품이다. 그리고 개별존재성의 이 다양함은 행성 실존의 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 측면들의 모든 모습에 확장된다. 이들 10억 완전 구체들 각각은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 이들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장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들 중 어느 둘도 똑같이 않은가의 이유이다.

하보나 순환회로들 중 마지막을 너희가 지나가고 하보나 세계들 중 마지막을 방문하면 비로소, 모험의 힘찬 기운과 호기심의 자극은 너희 생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추진력, 앞으로 향하는 영원의 충동이 그 선구자, 시간 속에서의 모험하는 매혹을 대신할 것이다.

단조로움은, 창조하는 상상력에서 미숙하다는 것과 영적 자질과의 지적 조화-협동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상승하는 필사 존재가 이들 하늘세계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때가 되면,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감성적, 지성적, 사회적 성숙을 달성해 온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에서, 순환회로에서 순환회로로 나아가면서 꿈도 꾸지 않았던 변화들에 네가 부딪치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각 순환회로에서, 행성에서 행성으로 너희가 진보하면서 너희의 놀라움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10억 학습세계 각각은 놀라움의 참다운 대학이다. 계속되는 놀라움, 끝없는 경이로움은 이런 순환회로들을 지나고 이들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들이 겪는 체험이다.

모험에 대한 사랑, 호기심, 그리고 단조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진화하는 인간 본성에 선천적인 이들 특색들—은 너희가 잠시 땅에 머무는 동안 단지 너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려고 그렇게 투입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모험에서의 끝없는 생애, 가득찬 기대의 영속하는 생명, 발견의 영원한 항해의 오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던지지 비치려는 것이다.

among the worlds of the circuit of your assignment. You will also be permitted to go back to the planets of those circuits you have previously traversed. And all this is possible to those who sojourn on the circles of Havona without the necessity of being ensupernaphimed. The pilgrims of time are able to equip themselves to traverse “achieved” space but must depend on the ordained technique to negotiate “unachieved” space; a pilgrim cannot leave Havona nor go forward beyond his assigned circuit without the aid of a transport supernaphim.

14:5.6 (159.2) There is a refreshing originality about this vast central creation. Aside from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matter and the fundamental constitution of the basic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and other living things, there is nothing in common between the worlds of Havona. Every one of these planets is an original, unique, and exclusive creation; each planet is a matchless, superb, and perfect production. And this diversity of individuality extends to all features of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aspects of planetary existence. Each of these billion perfection spheres has been developed and embel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of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And this is just why no two of them are alike.

14:5.7 (159.3) Not until you traverse the last of the Havona circuits and visit the last of the Havona worlds, will the tonic of adventure and the stimulus of curiosity disappear from your career. And then will the urge, the forward impulse of eternity, replace its forerunner, the adventure lure of time.

14:5.8 (159.4) Monotony is indicative of immaturity of the creative imagination and inactivity of intellectual co-ordination with the spiritual endowment. By the time an ascendant mortal begins the exploration of these heavenly worlds, he has already attained emot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if not spiritual, maturity.

14:5.9 (159.5) Not only will you find undreamed-of changes confronting you as you advance from circuit to circuit in Havona, but your astonishment will be inexpressible as you progress from planet to planet within each circuit. Each of these billion study worlds is a veritable university of surprises. Continuing astonishment, unending wonder, is the experience of those who traverse these circuits and tour these gigantic spheres. Monotony is not a part of the Havona career.

14:5.10 (159.6) Love of adventure, curiosity, and dread of monotony — these traits inherent in evolving human nature — were not put there just to aggravate and annoy you during your short sojourn on earth, but rather to suggest to you that death is only the beginning of an endless career of adventure, an everlasting life of anticipation, an eternal voyage of discovery.

호기심—탐구의 영, 발견에 대한 충동, 탐험에 대한 욕구—은 진화하는 공간 창조체들의 선천적이고도 신성한 자질의 한 부분이다. 자연적인 이들 추진력들이 단지 너희를 좌절시키고 억누르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진실로, 이러한 야심적인 충동들이 너희가 잠시 땅에 사는 동안 자주 억제되어야만 하고, 실망이 종종 체험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가올 긴 시대들 동안 충분히 실현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족될 것이다.

제 6 장. 중앙우주의 목적

일곱-회로로 된 하보나의 활동들의 범위는 거대하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 하보나의.
2. 파라다이스의.
3. 상승하는-유한의—최극-궁극 진화의.

현 우주 시대의 하보나 안에서는, 말한 적이 없는 아(亞)절대의 다양성들 그리고 마음과 영 기능들의 또 다른 위상들을 포함하여, 많은 초(超)유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계시되지 않은 많은 목적들을 중앙우주가 이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창조된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필요들에 대하여 사명활동하고 우주 지능체의 일곱 계층들의 만족에 기여하는가를 서술하고자 애쓸 것이다.

1. 우주 아버지—첫째근원이며 중심. 아버지 하느님은 중앙 창조의 완전으로부터 최극의 아버지의 만족감을 이끌어 낸다. 그는 거의-평등한 차원들에서 사랑 충족의 체험을 즐긴다. 완전한 창조자는 완전한 창조체의 찬미로서 신성하게 기쁨을 누린다.

하보나는 아버지에게 최극 성취 충족을 제공한다. 하보나에서 완전성 실현은 무한 확대의 영원한 추진력이 시간-공간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상한다.

아버지는 신성한 아름다움의 하보나 상호보답을 즐긴다. 그것은 모든 진화하는 우주들에게 절묘한 조화의 완전한 원형들을 제공하도록 신성한 마음을 만족시킨다.

우리의 아버지는 중앙우주가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개인성들에게 영 실체의 가치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우주들의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이어지는 우주 확대를 위한 영원한 힘 핵심으로서

14:5.11 (160.1) Curiosity — the spirit of investigation, the urge of discovery, the drive of exploration — is a part of the inborn and divine endowment of evolutionary space creatures. These natural impulses were not given you merely to be frustrated and repressed. True, these ambitious urges must frequently be restrained during your short life on earth, disappointment must be often experienced, but they are to be fully realized and gloriously gratified during the long ages to come.

6. THE PURPOSE OF THE CENTRAL UNIVERSE

14:6.1 (160.2) The range of the activities of seven-circuited Havona is enormous. In general, they may be described as:

14:6.2 (160.3) 1. Havonal.

14:6.3 (160.4) 2. Paradisiacal.

14:6.4 (160.5) 3. Ascendant-finite — Supreme-Ultimate evolutional.

14:6.5 (160.6) Many superfinite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Havona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nvolving untold diversities of absonite and other phases of mind and spirit functions. It is possible that the central universe serves many purposes which are not revealed to me, as it functions in numerous way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created mind. Nevertheless, I will endeavor to depict how this perfect creation ministers to the needs and contributes to the satisfactions of seven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

14:6.6 (160.7) 1. *The Universal Father* — the First Source and Center. God the Father derives supreme parental satisfaction from the perfection of the central creation. He enjoys the experience of love satiety on near-equality levels. The perfect Creator is divinely pleased with the adoration of the perfect creature.

14:6.7 (160.8) Havona affords the Father supreme achievement gratification. The perfection realization in Havona compensates for the time-space delay of the eternal urge of infinite expansion.

14:6.8 (160.9) The Father enjoys the Havona reciprocation of the divine beauty. It satisfies the divine mind to afford a perfect pattern of exquisite harmony for all evolving universes.

14:6.9 (160.10) Our Father beholds the central universe with perfect pleasure because it is a worthy revelation of spirit reality to all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4:6.10 (160.11) The God of universes has favorable regard for Havona and Paradise as the eternal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알맞은 것으로 여긴다.

영원한 아버지는 시간의 상승 후보자들, 그들의 창조자-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성취하는 공간의 그의 필사 손자들을 위한 가치 있고 매혹적인 목표로서 하보나 창조를 끝없는 만족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신(神)과 그리고 신성한 가족의 영원한 고향으로서, 파라다이스-하보나 우주에서 기쁨을 누리신다.

2. 영원한 아들—둘째근원이며 중심. 영원한 아들에게 있어서 뛰어난 그 중앙 창조는 신성한 가족—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동반자관계 효력성에 대한 영원한 증명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려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기초이다.

하보나는 영 힘의 계속-확대하는 실현을 위한 거의 무제한적 기초를 영원한 아들에게 제공한다. 중앙우주는 영원한 아들이 그의 연관-동료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증여 사명활동의 성과 기쁨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실증할 수 있는 장(場)을 그에게 제공하였다.

하보나는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영(靈)-중력 통제를 위한 실체 기초이다. 이 우주는 부모(父母)로서의 갈망의, 영적 재생산의, 충족을 아들에게 제공한다.

하보나 세계들과 그것들의 완전한 거주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최초의 그리고 영원토록 최종적인 실증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무한 보완물로서의 아들의 의식(意識)이 완전하게 만족된다.

그리고 이 우주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사이의 평등성 형제우애의 상호보답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각각의 무한 개인성의 영속하는 증명을 이루고 있다.

3. 무한한 영—셋째근원이며 중심. 하보나 우주는 공동 행위자가 되는, 아버지-아들의 무한 대표자가 되는, 증명을 무한한 영에게 제공한다. 하보나에서 무한한 영은 창조하는 활동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병합된 만족을 얻으며 이 신성한 성취와 함께 절대 공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하보나 안에서 무한한 영은 잠재적 자비 사명활동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그가 실증할 수 있는 일종의 장(場)을 설립하였다. 이 완전 창조에서 영은 진화 우주들에서 사명활동하는 모험을 위해 예비 실습하였다.

이 완전 창조는 무한한 영에게, 신성한 두 부모들, 곧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과 함께 우주 관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연관 동료-창조

power nucleus for all subsequent universe expansion in time and space.

14:6.11 (160.12) The eternal Father views with never-ending satisfaction the Havona creation as the worthy and alluring goal for the ascension candidates of time, his mortal grandchildren of space achieving their Creator-Father's eternal home. And God takes pleasure in the Paradise-Havona universe as the eternal home of Deity and the divine family.

14:6.12 (160.13) 2. *The Eternal Son* —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o the Eternal Son the superb central creation affords eternal proof of the partnership effectiveness of the divine family — Father, Son, and Spirit. It is the spiritual and material basis for absolute confidence in the Universal Father.

14:6.13 (160.14) Havona affords the Eternal Son an almost unlimited base for the ever-expanding realization of spirit power. The central universe afforded the Eternal Son the arena wherein he could safely and securely demonstrate the spirit and technique of the bestowal ministry for the instruction of his associate Paradise Sons.

14:6.14 (161.1) Havona is the reality foundation for the Eternal Son's spirit-gravity contro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universe affords the Son the gratification of parental craving, spiritual reproduction.

14:6.15 (161.2) The Havona worlds and their perfect inhabitants are the first and the eternally final demonstration that the Son is the Word of the Father. Thereby is the consciousness of the Son as an infinite complement of the Father perfectly gratified.

14:6.16 (161.3) And this universe affords the opportunity for the realization of reciprocation of equality fraternity between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is constitutes the everlasting proof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each.

14:6.17 (161.4) 3. *The Infinite Spirit* —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Havona universe affords the Infinite Spirit proof of being the Conjoint Actor, the infinite representative of the unified Father-Son. In Havona the Infinite Spirit derives the combined satisfaction of functioning as a creative activity while enjoying the satisfaction of absolute coexistence with this divine achievement.

14:6.18 (161.5) In Havona the Infinite Spirit found an arena wherein he could demonstrate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serve as a potential mercy minister. In this perfect creation the Spirit rehearsed for the adventure of ministry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14:6.19 (161.6) This perfect creation afforded the Infinite Spirit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universe administration with both divine parents — to

자 자손으로서 우주를 관리-행정하는 기회, 그리하여 창조자 아들들의 연관-동료 창조 영 들로서 지역우주들의 공동 관리-행정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보나 세계들은 조화우주 마음의 창조자들과 실존하는 모든 창조체 마음에 대한 사명활동자들의 마음 실험실이다. 마음은 각 하보나 세계마다 다르며 모든 영적 그리고 물질적 창조체 지능을 위한 원형틀로서 쓰인다.

이들 완전 세계들은 파라다이스 사회로 가게 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마음 대학원들이다. 그들은 안전에서의 그리고 조언하는 개인성들의 마음 사명활동의 기법을 시험하는 풍부한 기회를 영에게 제공하였다.

무한한 영에게 하보나는 공간의 우주들에서 그의 광범위하고 사심-없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하보나는 시간과 공간의 지치지 않는 마음 사명활동자에게 완전한 고향이자 휴식처이다.

4. 최극존재—체험적 신(神)의 진화적 통일체. 하보나 창조는 최극존재의 영적 실체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증명이다. 이 완전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체험적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유한-반영의 힘-개인성 합성이 시작하기 전에, 최극자 하느님의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영(靈) 본성을 제시한 것이다.

하보나에서 전능자의 힘 잠재들은 최극자의 영적 본성과 통합되어 있다. 이 중앙 창조는 최극자의 미래-영원한 합일에 대한 표본이다.

하보나는 최극자의 보편성 잠재에 대한 완전한 원형틀이다. 이 우주는 최극자의 미래 완전성에 대한 완결된 묘사이며 그리고 궁극자의 잠재를 넘어서 비친다.

하보나는 최극의 그리고 완전한 자아-통제의 살아있는 의지적 창조체로서 존재하는 영 가치들; 궁극적으로 영에 대등한 것으로 존재하는 마음; 무제한적 잠재를 갖춘 지능의 실체와 합일체, 이들의 최종을 나타낸다.

5.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우주 창조에서 이어지는 그들의 모험을 위해 준비되는 교육훈련장이다. 이 신성하고 완전한 창조는 모든 창조자 아들을 위한 원형틀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우주가 결국에는 완전성의 이들 파라다이스-하보나 차원에 도달하도록 만들려고 분투한다.

창조자 아들은 그 자신의 필사자 자녀들과 영 존재들을 위한 개인성-원형틀 가능성으로서 하보나의 창조체들을 사용한다. 미가엘과 또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시간

administer a universe as associate-Creator offspring, thereby preparing for the joint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s as the Creative Spirit associates of the Creator Sons.

14:6.20 (161.7) The Havona worlds are the mind laboratory of the creators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isters to every creature mind in existence. Mind is different on each Havona world and serves as the pattern for all spiritual and material creature intellects.

14:6.21 (161.8) These perfect worlds are the mind graduate schools for all beings destined for Paradise society. They afforded the Spirit abundant opportunity to test out the technique of mind ministry on safe and advisory personalities.

14:6.22 (161.9) Havona is a compensation to the Infinite Spirit for his widespread and unselfish work in the universes of space. Havona is the perfect home and retreat for the untiring Mind Minister of time and space.

14:6.23 (161.10) 4. *The Supreme Being* — the evolutionary unification of experiential Deity. The Havona creation is the eternal and perfect proof of the spiritual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This perfect creation is a revelation of the perfect and symmetrical spirit nature of God the Supreme before the beginnings of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finite reflections of the Paradise Deities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4:6.24 (161.11) In Havona the power potentials of the Almighty are unified with the spiritual nature of the Supreme. This central creation is an exemplification of the future-eternal unity of the Supreme.

14:6.25 (161.12) Havona is a perfect pattern of the universality potential of the Supreme. This universe is a finished portrayal of the future perfection of the Supreme and is suggestive of the potential of the Ultimate.

14:6.26 (162.1) Havona exhibits finality of spirit values existing as living will creatures of supreme and perfect self-control; mind existing as ultimately equivalent to spirit; reality and unity of intelligence with an unlimited potential.

14:6.27 (162.2) 5. *The Co-ordinate Creator Sons.* Havona is the educational training ground where the Paradise Michaels are prepared for their subsequent adventures in universe creation. This divine and perfect creation is a pattern for every Creator Son. He strives to make his own universe eventually attain to these Paradise-Havona levels of perfection.

14:6.28 (162.3) A Creator Son uses the creatures of Havona as personality-pattern possibilities for his own mortal children and spirit beings. The Michael and other Paradise Sons view Paradise and

의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으로 본다.

창조자 아들들은 중앙 창조가 그들의 지역우주를 안정시키고 통합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우주 전반적-통제의 실제 근원임을 안다. 그들은 최극자의 그리고 궁극자의 항상-현존하는 영향의 개인적 현존이 하보나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는 미가엘 아들의 창조적 힘의 근원이다. 우주 창조에서 그와 협동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거주한다. 파라다이스로 부터 우주 어머니 영들, 지역우주들의 공동 창조자들이 온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중앙 창조를 그들의 신성한 부모들의 고향—그들의 고향—으로 여긴다. 그것은 그들이 때때로 돌아가기를 즐기는 장소이다.

6. 조화-협동 사명활동 딸. 우주 어머니 영들, 지역우주의 조화-협동-창조자들은, 순환회로들의 영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그들의 전(前)개인적 훈련을 확보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줄곧 아버지의 뜻에 모두 따르면서, 지역우주들의 영 딸들이 파라다이스의 아들들과 협동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훈련받는다.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영과 영의 딸들은 영적 그리고 물질적 지능들의 모든 자신들 집단을 위한 마음 원형틀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중앙우주는 우주 어머니 영이 연관-동료 창조자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는 저들 창조체들이 언젠가 갈 운명이다.

우주 어머니 창조자는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를 그녀가 기원된 장소 그리고 무한 어머니 영의 고향, 무한 마음의 개인성 현존이 있는 거처로서 기억한다.

또한 살아있는 의지 창조체들을 창조하는 일에서 창조자 아들에게 보완이 되도록 우주 신성한 사명활동자가 적용하는 창조자신분의 개인적 특권이 이 중앙우주로부터 증여되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 어머니 영의 이들 딸 영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고향에 언제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하보나에서 최극존재와 연관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장엄자로서 개인성구현된 우주적 반영 현상으로부터 큰 만족을 얻는다.

7. 상승하는 생애의 진화적 필사자. 하보나는 모든 필사자 유형의 원형틀 개인성들의 고향이며 시간의 창조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필사자 관계적-연합의 모든 초(超)인간 개인성의 고향이다.

Havona as the divine destiny of the children of time.

14:6.29 (162.4) The Creator Sons know that the central creation is the real source of that indispensable universe overcontrol which stabilizes and unifies their local universes. They know that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ever-present influence of the Supreme and of the Ultimate is in Havona.

14:6.30 (162.5) Havona and Paradise are the source of a Michael Son's creative power. Here dwell the beings who co-operate with him in universe creation. From Paradise come the Universe Mother Spirits, the cocreators of local universes.

14:6.31 (162.6) The Paradise Sons regard the central creation as the home of their divine parents — their home. It is the place they enjoy returning to ever and anon.

14:6.32 (162.7) 6. *The Co-ordinate Ministering Daughters.* The Universe Mother Spirits, cocreators of the local universes, secure their prepersonal training on the worlds of Havona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Spirits of the Circuit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Spirit Daughters of the local universes were duly trained in the methods of co-operation with the Sons of Paradise,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14:6.33 (162.8) On the worlds of Havona the Spirit and the Daughters of the Spirit find the mind patterns for all their groups of spiritual and material intelligences, and this central universe is the sometime destiny of those creatures which a Universe Mother Spirit jointly sponsors with an associated Creator Son.

14:6.34 (162.9) The Universe Mother Creator remembers Paradise and Havona as the place of her origin and the home of the Infinite Mother Spirit, the abode of the personality presence of the Infinite Mind.

14:6.35 (162.10) From this central universe also came the bestowal of the personal prerogatives of creatorship which a Universe Divine Minister employs as complementary to a Creator Son in the work of creating living will creatures.

14:6.36 (162.11) And lastly, since these Daughter Spirits of the Infinite Mother Spirit will not likely ever return to their Paradise home, they derive great satisfaction from the universal reflectivity phenomenon associated with the Supreme Being in Havona and personalized in Majeston on Paradise.

14:6.37 (162.12) 7.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he Ascending Career.* Havona is the home of the pattern personality of every mortal type and the home of all superhuman personalities of mortal association who are not native to the creations of time.

이들 세계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체 차원에서 참된 영 가치들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인간 충동들의 자극을 제공한다. 하보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의 예비-파라다이스 훈련 목표이다. 필사자들은 예비-파라다이스 신(神)—최극존재—을 여기에서 달성한다. 하보나는 파라다이스와 하느님 달성에 도달하는 입구로서 모든 의지적 창조체 앞에 있다.

파라다이스는 최종자의 고향이고, 하보나는 작업장이자 놀이터이다. 그리고 하느님을-아는 모든 필사자들은 최종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중앙우주는 사람의 확정된 운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주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험하는 체험으로,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우주적인 모험을 언젠가는 시작하여 나가므로, 이곳은 또한 최종자의 영원한 생애의 출발 장소이기도 하다.

하보나는, 초(超)유한 차원들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공간 순례자들이 목격할지도 모를, 아(亞)절대적 의의(意義)를 가지고 미래 우주시대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언제까지나 기능할 것이다. 하보나는 아(亞)절대 존재들을 위한 훈련 우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고 있다. 아마 그것은 일곱 초우주들이 외부우주의 초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중등학교로서 기능할 때, 완결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보나의 잠재가 실제로 무제한적이라는, 중앙우주가 창조된 존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유형들을 위한 체험적 훈련우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원한 수용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믿고 싶다.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기능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14:6.38 (162.13) These worlds provide the stimulus of all human impulses towards the attainment of true spirit values on the highest conceivable reality levels. Havona is the pre-Paradise training goal of every ascending mortal. Here mortals attain pre-Paradise Deity — the Supreme Being. Havona stands before every will creature as the portal to Paradise and God attainment.

14:6.39 (163.1) Paradise is the home, and Havona the workshop and playground, of the finaliters. And every God-knowing mortal craves to be a finaliter.

14:6.40 (163.1) The central universe is not only man's established destiny, but it is also the starting place of the eternal career of the finaliters as they shall sometime be started out on the undisclosed and universal adventure in the experience of exploring the inf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14:6.41 (163.1) Havona will unquestionably continue to function with absonite significance even in future universe ages which may witness space pilgrims attempting to find God on superfinite levels. Havona has capacity to serve as a training universe for absonite beings. It will probably be the finishing school whe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functioning as the intermediate school for the graduates of the primary schools of outer space. And we incline to the opinion that the potentials of eternal Havona are really unlimited, that the central universe has eternal capacity to serve as an experiential training universe for all past, present, or future types of created beings.

14:6.42 (163.1)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commissioned thus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15 편 일곱 초우주

⇨ 014

유랜시아 책

016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5 편 일곱 초우주

섹션

소개

- 제 1 장. 초우주 공간 차원
- 제 2 장. 초우주의 조직
- 제 3 장. 오르본톤 초우주
- 제 4 장. 성운-우주들의 조상
- 제 5 장. 공간 몸체의 기원
- 제 6 장. 공간의 구체
- 제 7 장. 고안건축 구체
- 제 8 장. 에너지 통제와 규제
- 제 9 장. 초우주의 순환회로
- 제 10 장. 초우주의 통치자
- 제 11 장. 심의회(審議會)
- 제 12 장. 최극 재판소
- 제 13 장. 구역 정부
- 제 14 장. 일곱 초우주의 목적

소개

우주 아버지가—아버지로서—관계되는 한, 우주들은 실질적으로 비(非)실존적이다; 그는 개인성들을 상대한다; 그는 개인성들의 아버지이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에—창조자 동반자로서—관계되는 한, 우주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들의 공동 통치 아래에서 지역화 되고 개별적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계되는 한, 하보나 밖에는 오직 거주민이 사는 일곱 우주들, 첫 번째 하보나-이후 공간차원의 순환계의 관할권을 갖는 일곱 초우주들이 있다. 일곱 주(主) 영들은 중앙 섬으로부터 그들의 영향력을 방출하며, 그리하여 광대한 창조를 하나의 거대한 바퀴로 이루고, 바퀴 중심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섬이고, 일곱 주(主) 영들의 발광이 일곱 바퀴살을 이루고, 대우주의 외부 영역들로 테두리를 이룬다.

PAPER 15

THE SEVEN SUPER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 2.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s
- 3.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 4. Nebulae — The Ancestors of Universes
- 5. The Origin of Space Bodies
- 6. The Spheres of Space
- 7. The Architectural Spheres
- 8. Energy Control and Regulation
- 9.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 10.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 11. The Deliberative Assembly
- 12. The Supreme Tribunals
- 13. The Sector Governments
- 14. Purpos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NTRODUCTION

15:0.1 (164.1) AS FAR as the Universal Father is concerned — as a Father — the universes are virtually nonexistent; he deals with personalities; he is the Father of personalities. As far as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concerned — as creator partners — the universes are localized and individual under the joint rule of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As far as the Paradise Trinity is concerned, outside Havona there are just seven inhabited universes, the seven superuniverses which hold jurisdiction over the circle of the first post-Havona space level. The Seven Master Spirits radiate their influence out from the central Isle, thus constituting the vast creation one gigantic wheel, the hub being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seven spokes the radi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rim the

우주적 창조의 물질화가 있던 초기에 그 초우주 조직과 정부의 칠중 기획이 조성되었다. 첫 번째 하보나-이후 창조는 일곱 개의 거대한 부분들로 나뉘었고, 이 초우주 정부들의 본부 세계들이 설계되고 건축되었다. 현재의 관리-행정은 거의 영원부터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이 일곱 초우주들의 통치자들은 마땅히 옛적으로 늘 계신이라고 불린다.

그 초우주들에 관한 거대한 지식 덩어리 중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해주기를 거의 바랄 수도 없다, 그러나 물리적 그리고 영적 기세들에 대한 기능적 통제 기법이 이들 영역에 두루 작용하고, 그리고 우주 중력 현존이 웅대한 힘과 완전 조화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 초우주 영역들의 물리적 구성과 물질적 조직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것들의 영적(靈的)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이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여기저기에 분산된 거주민이 사는 무수한 행성들에 거하는 의지 창조체들의 지적 전진을 위하여 제공된 놀라운 조직의 의의(意義)를 파악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1 장. 초우주 공간 차원

너희의 짧은 1백만 년 또는 10억 년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기록들과 관찰들 그리고 기억들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볼 때, 모든 실천적 의지와 목적들에서, 유란시아와 그 소속된 우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하나의 길고도 그리고 좌표 없는 돌진의 모험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유버사의 기록들에 따르면, 더욱 오래된 관찰들에 따르면, 우리 계층의 더욱 확장된 체험과 계산에 부합되고, 그리고 이들 및 그 밖의 발견에 기초한 결론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주들이,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우주 둘레를 장엄한 모습으로 휘돌아 회전하면서, 계층적이고, 잘-납득되고, 완전하게 통제된 행렬에 속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일곱 초우주들이 하나의 거대한 타원, 거창하고 길게 늘어진 순환계를 지나가고 있음을 오래 전부터 발견하였다. 너희의 태양계와 시간의 다른 세계들이 좌표와 나침반 없이, 지도에도 없는 공간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돌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체계가 소속된 그 지역우주는 중앙우주를 도는 거대한 휘돌게 하는 회전 둘레에서 분명하고도 잘 알려진 시계반대방향 순환계를 따라가고 있다. 이 조화우주 경로는 좌표로 잘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궤도가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초우주 별 관찰자들에게 속속

outer regions of the grand universe.

15.0.2 (164.2) Early in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iversal creation the sevenfold scheme of the superunivers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was formulated. The first post-Havona creation was divided into seven stupendous segments, and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se superuniverse governments were designed and constructed. The present scheme of administration has existed from near eternity, and the rulers of these seven superuniverses are rightly called Ancients of Days.

15.0.3 (164.3) Of the vast body of knowledge concerning the superuniverses, I can hope to tell you little, but there is operative throughout these realms a technique of intelligent control for both physical and spiritual forces, and the universal gravity presences there function in majestic power and perfect harmony. It is important first to gain an adequate idea of the physical constitution and material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 domains, for then you will be the better prepared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marvelous organization provided for their spiritual government and for the intellectual advancement of the will creatures who dwell on the myriads of inhabited planets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se seven superuniverses.

1.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15.1.1 (164.4) Within the limited range of the records, observations, and memories of the generations of a million or a billion of your short year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Urantia and the universe to which it belongs are experiencing the adventure of one long and uncharted plunge into new space; bu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Uversa, in accordance with older observations, in harmony with the more extensive experience and calculations of our order, and as a result of conclusions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we know that the universes are engaged in an orderly, well-understood, and perfectly controlled processional, swinging in majestic grandeur around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his residential universe.

15.1.2 (165.1) We have long since discovered that the seven superuniverses traverse a great ellipse, a gigantic and elongated circle. Your solar system and other worlds of time are not plunging headlong, without chart and compass, into unmapped space. The local universe to which your system belongs is pursuing a definite and well-understood counterclockwise course around the vast swing that encircles the central universe. This cosmic path is well charted and is just as thoroughly known to the superuniverse star observers as the orbits of the planets constituting your solar system are known to Urantia

들이 알려져 있다.

유란시아는 한 지역우주 안에, 그리고 충분히 게 조직되지 않은 한 초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너희의 지역우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수많은 물리적 창조계에 바로 근접해 있다. 너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성된 우주들 중의 하나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좌표 없는 공간 속으로 격렬하게 돌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역 속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휘돌아 회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미리 예정되고 정돈된 초우주 공간 차원의 통로를 따라가고 있다. 너희는 지금 너희 행성 체계 또는 그것의 선배들이 여러 시대 전에 지나갔던 것과 아주 똑같은 공간을 통과하고 있다; 먼 훗날 언젠가 너희 체계 또는 그것의 후배들이 지금 너희가 매우 신속하게 돌진해 지나가는 곳과 동일한 공간을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고려되는 방향에 따라, 초우주 1번은, 가깝게 마주하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파라다이스 거주지와 하보나의 중앙우주를 향하여, 동쪽으로부터의 방향에서, 거의 정북(正北)쪽을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이 지점은, 서쪽에서 대응되는 위치와 함께, 영원한 섬에 이르는 시간의 구체들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접근을 나타낸다. 초우주 2번은 북쪽에 있고, 서쪽방향을 향해 휘도는 회전을 준비하고 있고, 한편 3번은 현재 거대한 공간 경로의 최북단 원호(圓弧)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쪽으로의 돌입으로 인도하는 굽은 부분을 이미 돌고 있다. 4번은 비교적 똑바른 남쪽으로의 비행에 있고, 전진할 영역들은 지금 위대한 중심과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 5번은 중심들의 중심 마주하는 지점을 거의 떠나가고 있으면서, 한편 동쪽방향을 향한 휘도는 회전 바로 직전에서 똑바로 남쪽으로 향하는 경로를 따르는 중이다.; 6번은 남쪽 곡선의 대부분, 너희 초우주가 이미 거의 다 지나간 그 원호(圓弧)를 차지하고 있다.

네바돈이라는 너희 지역우주는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초우주 1번과 6번 사이에서 휘돌아 회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 바로는) 초우주 공간 차원의 남동쪽 굽은 곳을 돌았다. 오늘날, 유란시아가 소속된 태양계는 남쪽 곡면 둘레에서의 휘도는 회전을 수십억 년 지나갔고 그리하여 너희는 바로 지금 남동쪽 굽은 곳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으며 비교적 똑바르고 긴 북쪽 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긴 시대들 동안 오르본톤은 거의 직접 북쪽 방향의 이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유란시아는 너희 지역우주의 경계선을 향하여 상당히 바깥쪽으로 나간 체계에 속해 있고; 너희 지역우주는 현재 오르본톤의 가장자리를 지나고 있다. 너희를 지나도 여전히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희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거대한 원 둘레를, 휘돌아 회전하는 그 물리적 체계들에서,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astronomers.

15.1.3 (165.2) Urantia is situated in a local universe and a superuniverse not fully organized, and your local universe is in immediate proximity to numerous partially completed physical creations. You belong to one of the relatively recent universes. But you are not, today, plunging on wildly into uncharted space nor swinging out blindly into unknown regions. You are following the orderly and predetermined path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You are now passing through the very same space that your planetary system, or its predecessors, traversed ages ago; and some day in the remote future your system, or its successors, will again traverse the identical space through which you are now so swiftly plunging.

15.1.4 (165.3) In this age and as direction is regarded on Urantia, superuniverse number one swings almost due north, approximately opposite, in an easterly direction, to the Paradise residence of the Great Sources and Centers and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This position, with the corresponding one to the west, represents the nearest physical approach of the spheres of time to the eternal Isle. Superuniverse number two is in the north, preparing for the westward swing, while number three now holds the northernmost segment of the great space path, having already turned into the bend leading to the southerly plunge. Number four is on the comparatively straightaway southerly flight, the advance regions now approaching opposition to the Great Centers. Number five has about left its position opposite the Center of Centers while continuing on the direct southerly course just preceding the eastward swing; number six occupies most of the southern curve, the segment from which your superuniverse has nearly passed.

15.1.5 (165.4) Your local universe of Nebadon belongs to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which swings on between superuniverses one and six, having not long since (as we reckon time) turned the southeastern bend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Today, the solar system to which Urantia belongs is a few billion years past the swing around the southern curvature so that you are just now advancing beyond the southeastern bend and are moving swiftly through the long and comparatively straightaway northern path. For untold ages Orvonton will pursue this almost direct northerly course.

15.1.6 (165.5) Urantia belongs to a system which is well out towards the borderland of your local universe; and your local universe is at present traversing the periphery of Orvonton. Beyond you there are still others, but you are far removed in space from those physical systems which swing around the great circle in comparative proximity to

있다.

제 2 장. 초우주의 조직

오직 우주 아버지만이 공간 속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위치와 실제적 숫자를 알며; 그는 그것들 모두를 이름과 숫자로 부른다. 나는 오직 거주되거나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의 대략적인 숫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지역우주들은 지능 생명에게 적당한 세계들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들이 모두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공하는 추정치는 물질적 창조의 광대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공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대우주 안에는 일곱 초우주들이 있고, 그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체계. 약 1,000개의 거주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세계들로 구성되는 초(超)정부의 기초 단위. 타오르는 태양들, 차가운 세계들, 뜨거운 태양에 너무 근접된 행성들, 그리고 창조체 거주지로 적당하지 않은 또 다른 구체들은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을 지탱하기에 적합한 1,000개의 이들 세계를 체계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체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숫자의 이러한 세계들만이 거주되기도 한다. 거주민이 사는 각 행성은 한 명의 행성영주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각 지역체계는 그 본부로서 고안건축 구체를 가지며 체계 주권자에 의해 통치된다.

2. 별자리. 100개의 체계들(약 1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한 별자리를 구성한다. 각 별자리마다 고안건축 본부구체를 가지며 세 명의 보론다덱 아들들, 지고자(至高者)들에 의해 지배된다. 또한 각 별자리는 관찰하는 한 명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를 갖는다.

3. 지역우주. 100개의 별자리들(약 1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한 지역우주를 구성한다. 각 지역우주는 하나의 장엄한 고안건축 본부 세계를 가지며 미가엘 계층의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들 중 하나에 의해 통치된다. 각 우주는 한 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표의 현존에 의해 축복을 받는다.

4. 소구역. 100개의 지역우주들(약 1,00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초우주 정부의 한 소구역을 구성한다; 그것은 그곳에서의 그 통치자,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가 소구역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는 놀라운 하나의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각 소구역 본부에는 세 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이 있다.

the Great Source and Center.

2. ORGANIZATION OF THE SUPERUNIVERSES

15:2.1 (165.6) Only the Universal Father knows the location and actual number of inhabited worlds in space; he calls them all by name and number. I can give only the approximate number of inhabited or inhabitable planets, for some local universes have more worlds suitable for intelligent life than others. Nor have all projected local universes been organized. Therefore the estimates which I offer are solely for the purpose of affording some idea of the immensity of the material creation.

15:2.2 (166.1) There are seven superuniverses in the grand universe, and they are constituted approximately as follows:

15:2.3 (166.2) 1. *The System.* The basic unit of the supergovernment consists of about one thousand inhabited or inhabitable worlds. Blazing suns, cold worlds, planets too near the hot suns, and other spheres not suitable for creature habitation are not included in this group. These one thousand worlds adapted to support life are called a system, but in the younger systems only a comparatively small number of these worlds may be inhabited. Each inhabited planet is presided over by a Planetary Prince, and each local system has an architectural sphere as its headquarters and is ruled by a System Sovereign.

15:2.4 (166.3) 2. *The Constellation.* One hundred systems (about 100,000 inhabitable planets) make up a constellation. Each constellation has an architectural headquarters sphere and is presided over by three Vorondadek Sons, the Most Highs. Each constellation also has a Faithful of Days in observation, an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15:2.5 (166.4) 3. *The Local Universe.* One hundred constellations (about 1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local universe. Each local universe has a magnificent architectural headquarters world and is ruled by one of the co-ordinate Creator Sons of God of the order of Michael. Each universe is blessed by the presence of a Union of Days, a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15:2.6 (166.5) 4. *The Minor Sector.* One hundred local universes (about 1,00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min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it has a wonderful headquarters world, wherefrom its rulers, the Recents of Days, administer the affairs of the minor sector. There are three Recent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on each minor

5. 대구역. 100개의 소구역들(약 100,000,000,000개의 거주가능 세계들)이 하나의 대구역을 이룬다. 각 대구역에는 하나의 훌륭한 본부가 있고 세 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 이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에 의해 주관된다.

6. 초우주. 10개의 대구역(약 1,000,000,000,000개의 거주가능 행성들)이 하나의 초우주를 구성한다. 각 초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본부 세계가 있고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통치된다.

7. 대우주. 일곱 초우주들이 조직된 현재의 대우주를 이루는데, 거주 가능한 약 7조 개의 세계들과 이에 더하여 고안건축 구체들과 거주민이 사는 10억 개의 하보나 구체들로 구성된다. 초우주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영적으로 통치되고 관리-운영된다. 하보나의 10억 세계들은 이 완전 구체들 각각을 주관하는 그러한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인 분,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운영된다.

파라다이스-하보나 구체들을 제외하고, 우주 조직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위들을 제공한다:

초우주들 7
대구역들 70
소구역들 7,000
지역우주들 700,000
별자리들 70,000,000
지역체계들 7,000,000,000
거주가능 행성들 7,000,000,000,000

일곱 초우주 각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체계는 약1,000세계들 하나의 별자리는(100 체계).....100,000세계들 하나의 우주는(100 별자리).....10,000,000세계들 하나의 소구역은(100 우주).....1,000,000,000세계들 하나의 대구역은(100 소구역)...100,000,000,000세계들 하나의 초우주는(10 대구역).....1,000,000,000,000세계들을 포용한다.

하나의 체계에 포용되는 약1,000세계들

하나의 별자리는(100 체계).....100,000세계들

하나의 우주는(100 별자리).....10,000,000세계들

하나의 소구역은(100 우주).....1,000,000,000세계들

sector headquarters.

15:2.7 (166.6) 5. *The Major Sector.* One hundred minor sectors (about 100,000,000,000 inhabitable worlds) make one major sector. Each major sector is provided with a superb headquarters and is presided over by three Perfection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15:2.8 (166.7) 6. *The Superuniverse.* Ten major sectors (about 1,000,000,000,000 inhabitable planets) constitute a superuniverse. Each superuniverse is provided with an enormous and glorious headquarters world and is ruled by three Ancients of Days.

15:2.9 (166.8) 7. *The Grand Universe.* Seven superuniverses make up the present organized grand universe, consisting of approximately seven trillion inhabitable worlds plus the architectural spheres and the one billion inhabited spheres of Havona. The superuniverses are ruled and administered indirectly and reflectively from Paradise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are directly administered by the Eternals of Days, one such Supreme Trinity Personality presiding over each of these perfect spheres.

15:2.10 (167.1) Excluding the Paradise-Havona spheres, the plan of universe organization provides for the following units:

15:2.11 (167.2) Superuniverses..... 7

15:2.12 (167.3) Major sectors..... 70

15:2.13 (167.4) Minor sectors..... 7,000

15:2.14 (167.5) Local universes..... 700,000

15:2.15 (167.6) Constellations.....70,000,000

15:2.16 (167.7) Local systems..... 7,000,000,000

15:2.17 (167.8) Inhabitable planets.. 7,000,000,000,000

15:2.18 (167.9)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constituted, approximately, as follows:

15:2.19 (167.10) One system embraces, approximately..... 1,000 worlds

15:2.20 (167.11) One constellation (100 systems).....100,000 worlds

15:2.21 (167.12) One universe (100 constellations)..... 10,000,000 worlds

15:2.22 (167.13) One minor sector (100 universes)..... 1,000,000,000 worlds

하나의 대구역은(100 소구
역)...100,000,000,000세계들

하나의 초우주는(10 대구
역).....1,000,000,000,000세계들

그러한 계산 전체는 최선의 추정치인데, 이는 새로운 체계들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물질적 실존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15:2.23 (167.14) One major sector (100 minor sectors).... 100,000,000,000 worlds

15:2.24 (167.15) One superuniverse (10 major sectors)...1,000,000,000,000 worlds

15:2.25 (167.16) All such estimates are approximations at best, for new systems are constantly evolving while other organizations are temporarily passing out of material existence.

제 3 장. 오르본톤 초우주

유란시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영역들 전체는 실천적으로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문, 오르본톤 초우주에 속한다. 광대한 은하수 별들의 체계는 오르본톤의 중앙 핵을 나타내는데, 너희 지역우주 경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태양들, 공간의 암흑섬들, 2중성, 구형(球形)의 성단(星團)들, 별 구름들, 나선형 그리고 기타 성운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집합체는, 무수한 개별 행성들과 함께, 시계 모양, 거주민이 사는 진화하는 우주들 중 약 7분의 1을 집단으로 하는 길쭉한-원형을 형성한다.

유란시아의 천문상의 위치로부터, 거대한 은하수와 가까운 체계들의 단면을 통과하여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오르본톤의 구체들이 길쭉한 거대한 평면, 폭이 두께보다 훨씬 크고 길이가 폭보다 훨씬 큰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관찰한다.

이른바 은하수를 관찰하면 한쪽 방향에서 하늘들을 볼 때 오르본톤 별 밀집 도에서 비교적 증가하는 반면, 양쪽 방향 모두에서는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별들 그리고 다른 구체들의 숫자는 우리의 물질적 초우주의 주요 평면으로부터 점점 감소한다. 관찰하는 각도가 좋을 경우, 최고의 밀도를 갖는 이 영역의 주된 본체를 통해 바라본다면, 너희는 거주하는 우주와 만물의 중심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오르본톤의 10개 대구역 중, 8개는 유란시아인 천문학자들에 의해 이미 대략적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다른 두 개는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희는 이 현상들을 안쪽으로부터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오르본톤이라는 초우주를 공간 멀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일곱 번째 은하계의 10개 대구역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소구역의 회전 중심은 궁수(弓手)자리의 거대하고도 조밀한 별 구름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희 지역우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창조계 모든 것들이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 광대한 궁수자리 예측-은하 체계의 반대편으로부터 너희는 엄청난 별 소용돌이 속에서 창발하는 거대한

3.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15:3.1 (167.17) Practically all of the starry realms visible to the naked eye on Urantia belong to the seventh section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vast Milky Way starry system represents the central nucleus of Orvonton, being largely beyond the borders of your local universe. This great aggregation of suns, dark islands of space, double stars, globular clusters, star clouds, spiral and other nebulae, together with myriads of individual planets, forms a watchlike, elongated-circular grouping of about one seventh of the inhabited evolutionary universes.

15:3.2 (167.18) From the astronomical position of Urantia, as you look through the cross section of near-by systems to the great Milky Way, you observe that the spheres of Orvonton are traveling in a vast elongated plane, the breadth being far greater than the thickness and the length far greater than the breadth.

15:3.3 (167.19) Observation of the so-called Milky Way discloses the comparative increase in Orvonton stellar density when the heavens are viewed in one direction, while on either side the density diminishes; the number of stars and other spheres decreases away from the chief plane of our material superuniverse. When the angle of observation is propitious, gazing through the main body of this realm of maximum density, you are looking toward the residential universe and the center of all things.

15:3.4 (167.20) Of the ten major divisions of Orvonton, eight have been roughly identified by Urantian astronomers. The other two are difficult of separate recognition because you are obliged to view these phenomena from the inside. If you could look upo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from a position far-distant in space, you would immediately recognize the ten major sectors of the seventh galaxy.

15:3.5 (168.1) The rotational center of your minor sector is situated far away in the enormous and dense star cloud of Sagittarius, around which your local universe and its associated creations all move, and from opposite sides of the vast Sagittarius subgalactic system you may observe two great streams of star clouds emerging in

별 구름 줄기들을 관찰할 것이다.

너희 태양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행성들이 소속된 물리적 체계의 핵심은 한 때 안드로노버 성운이었던 것의 중심이다. 전에 나선형이었던 이 성운은 너희 태양계가 태어나면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된 중력 교란에 의해 약간 일그러졌으며, 그것은 큰 성운의 접근 때문에 유발되었었다. 근접된 이 충돌이 안드로노버로 하여금 약간 구형의 집합체가 되게 하였지만 그 태양들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물리적 집단들의 양방향 행진을 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너희 태양계는 지금 이 일그러진 소용돌이의 축들 중 하나 안에서 거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성류(星流)의 경계 끝을 향하여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궁수(弓手)자리 구역과 오르본톤의 다른 모든 구역들 그리고 지역들은 유버사 둘레를 회전하고 있으며, 유란시아인들 별 관찰자가 혼동하는 것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겹의 순회하는 운동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착각과 상대적 왜곡으로부터 발생된다:

1. 유란시아의 태양 둘레 회전.
2. 이전(以前)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핵 주위를 도는 너희 태양계의 순환회로.
3. 네바돈의 성운의 복합 회전-중력 중심에 대한 안드로노버 별 가족과 그리고 연관된 성단들의 회전.
4. 네바돈의 지역 성운 그리고 그들의 궁수(弓手)자리 중심에서의 소구역 둘레를 휘도는 그와 관련된 창조계의 회전.
5. 궁수(弓手)자리를 포함하여, 100개의 소구역의 그들의 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회전.
6. 오르본톤의 유버사 본부에 대한, 소위 성류(星流)운동이라 불리는, 열 개의 대구역들의 소용돌이.
7.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둘레의 오르본톤과 일곱 관련 초우주들의 움직임, 초우주 공간 차원의 시계반대방향 행렬.

이들 다중 운동들은 여러 계층들에 속한다: 너희 행성과 너희 태양계의 공간 경로들은 유전적인데, 기원에서 선천적이다. 오르본톤의 절대적인 시계반대방향 운동 역시 유전적인데, 주(主)우주의 고안건축의 계획에서 선천적이다. 그러나 간섭하는 운동들은 혼합적 기원을 갖는데, 일부분은 물질-에너지의 구조적 분열로부터 초우주들 안으로 파생되었고 일부분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산출되었다.

stupendous stellar coils.

15:3.6 (168.2) The nucleus of the physical system to which your sun and its associated planets belong is the center of the onetime Andronover nebula. This former spiral nebula was slightly distorted by the gravity disruptions associated with the events which were attendant upon the birth of your solar system, and which were occasioned by the near approach of a large neighboring nebula. This near collision changed Andronover into a somewhat globular aggregation but did not wholly destroy the two-way procession of the suns and their associated physical groups. Your solar system now occupies a fairly central position in one of the arms of this distorted spiral, situated about halfway from the center out towards the edge of the star stream.

15:3.7 (168.3) The Sagittarius sector and all other sectors and divisions of Orvonton are in rotation around Uversa, and some of the confusion of Urantian star observers arises out of the illusions and relative distortions produced by the following multiple revolutionary movements:

15:3.8 (168.4) 1. The revolution of Urantia around its sun.

15:3.9 (168.5) 2. The circuit of your solar system about the nucleus of the former Andronover nebula.

15:3.10 (168.6) 3. The rotation of the Andronover stellar family and the associated clusters about the composite rotation-gravity center of the star cloud of Nebadon.

15:3.11 (168.7) 4. The swing of the local star cloud of Nebadon and its associated creations around the Sagittarius center of their minor sector.

15:3.12 (168.8) 5. The rotation of the one hundred minor sectors, including Sagittarius, about their major sector.

15:3.13 (168.9) 6. The whirl of the ten major sectors, the so-called star drifts, about the Uversa headquarters of Orvonton.

15:3.14 (168.10) 7. The movement of Orvonton and six associated superuniverses around Paradise and Havona, the counterclockwise processional of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15:3.15 (168.11) These multiple motions are of several orders: The space paths of your planet and your solar system are genetic, inherent in origin. The absolute counterclockwise motion of Orvonton is also genetic, inherent in the architectural plans of the master universe. But the intervening motions are of composite origin, being derived in part from the constitutive segmentation of matter-energy into the superuniverses and in part produced by the intelligent and purposeful action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지역우주들은 그들이 하보나에 접근함에 따라 더욱 가까운 근접성을 가진다; 순환회로들은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층위에 층으로, 증가되는 초(超)부담(負擔)이 있다. 그러나 영원한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체계, 층, 순환회로 그리고 우주들은 점점 줄어든다.

제 4 장. 성운-우주들의 조상

창조계와 우주 조직이 무한한 창조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통제 아래에 언제까지나 놓여 있지만 한편, 전체적인 현상은 예정된 기법에 따라서 그리고 기세,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중력 법칙들에 순응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공간의 우주적 기세-충전과 관련된 어떤 신비로움이 존재한다; 우리는 극자적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의 물질적 창조계들의 조직은 잘 납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극자들의 조화우주적 조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조상이 되는 기세들이 파라다이스의 정확하고 거대한 테두리 안에 있는 층만 공간에 두루 언제까지나 휘돌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비록 파라다이스 중력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물질화의 조상인, 공간의 이 기세-충전은 하부 파라다이스의 현존에 대해 항상 응답하고 있으며, 결보기에는 분명히, 하부 파라다이스 중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다.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은 공간 잠재력을 원초기세로 변형시키고, 이 이전(以前)-물질적 잠재적인 것을 물리적 실체의 1차 및 2차 에너지 현시활동으로 진화시킨다. 이 에너지가 중력에-응답하는 차원들을 달성하게 되면, 힘 지도자들 그리고 초우주 관리 체계의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갖가지 힘 순환회로들과 에너지 경로들을 확립하도록 고안된, 결코-끝남이 없는 그들의 조종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물리적 물질이 공간 안에 나타나며, 그리고 그렇게 우주 조직을 개시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에너지의 이러한 분할은 네바돈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은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상대적인 접근 불가능성에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힘 지도자들이, 비록 그들이 공간-에너지를 잘 다루고는 있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조종하는 에너지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은 성운 조직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공간 현존에 관하여 거대한 기세의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일단 시작이 되면, 모든 것에-가득 퍼지는 기세들이 우주 물질의 극자적 단위들의 결국 생겨나는 출현을

15:3.16 (168.12) The local universes are in closer proximity as they approach Havona; the circuits are greater in number, and there is increased superimposition, layer upon layer. But farther out from the eternal center there are fewer and fewer systems, layers, circuits, and universes.

4. NEBULAE — THE ANCESTORS OF UNIVERSES

15:4.1 (169.1) While creation and universe organization remain forever under the control of the infinite Creators and their associates, the whole phenomenon proceeds in accordance with an ordained technique and in conformity to the gravity laws of force, energy, and matter. But there is something of mystery associated with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we quite understand the organization of the material creations from the ultimatic stage forward, but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cosmic ancestry of the ultimatons. We are confident that these ancestral forces have a Paradise origin because they forever swing through pervaded space in the exact gigantic outlines of Paradise. Though nonresponsive to Paradise gravity, this force-charge of space, the ancestor of all materialization, does always respond to the presence of nether Paradise, being apparently circuited in and out of the nether Paradise center.

15:4.2 (169.2)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transmute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and evolve this prematerial potential into the primary and secondary energy manifestations of physical reality. When this energy attains gravity-responding levels,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regime appear upon the scene and begin their never-ending manipulations designed to establish the manifold power circuits and energy channel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us does physical matter appear in space, and so is the stage set for the inauguration of universe organization.

15:4.3 (169.3) This segmentation of energy is a phenomenon which has never been solved by the physicists of Nebadon. Their chief difficulty lies in the relative inaccessibility of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for the living power directors, though they are competent to deal with space-energy, do not have the least conception of the origin of the energies they so skillfully and intelligently manipulate.

15:4.4 (169.4) Paradise force organizers are nebulae originators; they are able to initiate about their space presence the tremendous cyclones of force which, when once started, can never be stopped or limited until the all-pervading forces are mobilized for the eventual appearance of the

위해 결집될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제한될 수 없다. 나선형의 성운 및 다른 성운, 직접-기원 태양들과 그들의 다양한 체계들의 모체(母體) 바퀴들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외부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열 가지 형태의 성운들, 원시적 우주 진화의 현상들이 보일 수 있으며, 이 광대한 에너지 바퀴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원되었다.

성운들은 크기와 결과적 숫자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별 자손과 행성 자손의 전체 질량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오르본톤의 경계의 바로 북쪽에 있지만 초우주 공간 차원 안에 있는, 태양을 형성하는 어떤 성운은 이미 약 4만 개의 태양들을 탄생시켜 왔으며, 모체바퀴는 여전히 태양들을 발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너희들 것보다 크기가 여러 배에 달한다. 외부 공간의 비교적 큰 어떤 성운들은 1억 개에 달하는 태양들을 기원시키고 있다.

지역우주들이 단일 성운의 산물들로부터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운은 소구역들 또는 지역우주들과 같은 행정-관리적 단위들 중 어떤 것 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각 지역우주는 성운 관계성에 상관없이 초우주의 전체 에너지 전하(電荷)의 정확하게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용하며, 이는 에너지가 성운에 의해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그것은 우주적으로 배분된다.

나선형 성운들 전체가 태양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그들의 분할된 별 후손들 대부분을 계속 통제해 오고 있고, 그들의 나선형 모습은 그들의 태양들이 가까운 형태화로서 성운의 축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사실로서 야기되었지만, 다양한 경로로 돌아오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한 지점에서 관찰하기는 쉽지만 그 성운 축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그들의 다른 회귀 경로 위에 널리 퍼져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관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초우주 외곽에 있는 안드로메다가 매우 활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오르본톤 안에서 태양을 형성하는 활동적인 성운은 그리 많지 않다. 멀리 있는 이 성운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며, 너희는 그것을 볼 때 너희 눈에 들어온 그 빛이 거의 100만 년 전에 멀리 있는 그 태양들로부터 떠난 것임을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은하수 은하계는 이전에 나선형이었던 수많은 성운과 다른 성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아직도 그들의 기원적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 격변과 외부적 인력의 결과로, 많은 경우에 마젤란 성운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집합체로 하여금 빛나는 태양들의 거창한 발광 물질들로 나타나게 만들게 하면서 그러한 뒤틀림과 재배치를 겪어 왔다. 성단의 구형체들이 오르본톤의 외부 경계선 근처를 차지하고 있다.

오르본톤의 광대한 별 구름들은 은하수 은하계 밖에 있는 공간 영역들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분리된 성운과 비교될만한 물질의 개별적 집합체

ultimatic units of universe matter. Thus are brought into being the spiral and other nebulae, the mother wheels of the direct-origin suns and their varied systems. In outer space there may be seen ten different forms of nebulae, phases of primary universe evolution, and these vast energy wheels had the same origin as did thos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15.4.5 (169.5) Nebulae vary greatly in size and in the resulting number and aggregate mass of their stellar and planetary offspring. A sun-forming nebula just north of the borders of Orvonton, but within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has already given origin to approximately forty thousand suns, and the mother wheel is still throwing off suns, the majority of which are many times the size of yours. Some of the larger nebulae of outer space are giving origin to as many as one hundred million suns.

15.4.6 (169.6) Nebulae are not directly related to any of the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minor sectors or local universes, although some local universes have been organized from the products of a single nebula. Each local universe embraces exactly one one-hundred-thousandth part of the total energy charge of a superuniverse irrespective of nebular relationship, for energy is not organized by nebulae — it is universally distributed.

15.4.7 (170.1) Not all spiral nebulae are engaged in sun making. Some have retained control of many of their segregated stellar offspring, and their spiral appearance is occasioned by the fact that their suns pass out of the nebular arm in close formation but return by diverse routes, thus making it easy to observe them at one point but more difficult to see them when widely scattered on their different returning routes farther out and away from the arm of the nebula. There are not many sun-forming nebulae active in Orvonton at the present time, though Andromeda, which is outside the inhabited superuniverse, is very active. This far-distant nebula is visible to the naked eye, and when you view it, pause to consider that the light you behold left those distant suns almost one million years ago.

15.4.8 (170.2) The Milky Way galaxy is composed of vast numbers of former spiral and other nebulae, and many still retain their original configuration. But as the result of internal catastrophes and external attraction, many have suffered such distortion and rearrangement as to cause these enormous aggregations to appear as gigantic luminous masses of blazing suns, like the Magellanic Cloud. The globular type of star clusters predominates near the outer margins of Orvonton.

15.4.9 (170.3) The vast star clouds of Orvonton should be regarded as individual aggregations of matter comparable to the separate nebulae

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무튼 소위 공간의 별 구름들이라 불리는 것들 대부분은 기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별 기체 구름들의 에너지 잠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일부는 근처에 있는 태양들에 의해 흡수되고 태양 발산물로서 공간 속에 다시 발송된다.

observable in the space regions external to the Milky Way galaxy. Many of the so-called star clouds of space, however, consist of gaseous material only. The energy potential of these stellar gas clouds is unbelievably enormous, and some of it is taken up by near-by suns and redispersed in space as solar emanations.

제 5 장. 공간 물체의 기원

초우주의 태양과 행성에 포함된 질량체는 성운 바퀴에서 기원된다; 한결같이 변경되는 물질의 양이 열린 공간 안에서 기원하고 있다해도, 초우주 질량 중 아주 적은 부분만이, (고안건축 구체들의 건축의 경우처럼) 힘 지도자들의 직접적 활동에 의해 조직화된다.

기원에 관하여, 대부분의 태양들, 행성들, 그리고 다른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집단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 수축하는 동심원 고리. 모든 성운들이 나선형인 것은 아니다. 수다한 거대 성운은, 이중적 별 체계로 나뉘거나 나선형으로 진화하는 대신, 다중-고리 형성으로 응축 과정을 지나간다. 그러한 성운은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구름들, 물질의 고리-모양 형성에 의해 에워싸인 거대한 중앙 태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난다.

2. 빙빙도는 별들은 고도로 가열된 기체의 거대한 모체 바퀴를 방출하는 그 태양들을 포옹한다. 그것들은 고리 모양으로가 아니라 오른쪽 그리고 왼쪽 방향 행렬로 방출된다. 빙빙도는 별들은 또한 나선형이-아닌 다른 성운 안에서 기원한다.

3. 중력-폭발 행성. 태양이 나선형 또는 가로줄 무늬의 성운으로 탄생할 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방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태양은 거의 기체 상태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식어지고 응축되면, 거대한 질량의 어떤 물질, 거대한 태양 또는 공간의 암흑 섬 가까이를 휘돌아 회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접근은 충격을 가져올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력이 더 큰 물체를 끌어당겨서 비교적 작은 것 안에 조수(潮水) 격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가까운데, 그리하여 요동치는 태양의 반대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조수 용기가 일어나게 한다. 폭발점에서 이 폭발적 분출들은, 분출하는 태양의 중력-교정 지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투사될 수도 있는 일련의 변화하는-크기의 물질의 집합체를 산출하며, 그리하여 이 에피소드에 관련된 두 물체들 중 하나의 둘레에 그들 스스로의 궤도들 안에서 안정되어 간다. 나중에는 더 큰 물질 집합체들이 연합하고 비교적 작은 물체들을 자기들 쪽으로 점점 더 당긴다. 비교적 작은 체계들의 고체 행성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실존하게 된다. 너희 자신의 태양계는 바로 그렇게 기원되었다.

5. THE ORIGIN OF SPACE BODIES

15:5.1 (170.4) The bulk of the mass contained in the suns and planets of a superuniverse originates in the nebular wheels; very little of superuniverse mass is organized by the direct action of the power directors (as in the construction of architectural spheres), although a constantly varying quantity of matter originates in open space.

15:5.2 (170.5) As to origin, the majority of the suns, planets, and other spheres can be classified in one of the following ten groups:

15:5.3 (170.6) 1. *Concentric Contraction Rings*. Not all nebulae are spiral. Many an immense nebula, instead of splitting into a double star system or evolving as a spiral, undergoes condensation by multiple-ring formation. For long periods such a nebula appears as an enormous central sun surrounded by numerous gigantic clouds of encircling, ring-appearing formations of matter.

15:5.4 (170.7) 2. *The Whirled Stars* embrace those suns which are thrown off the great mother wheels of highly heated gases. They are not thrown off as rings but in right- and left-handed processions. Whirled stars are also of origin in other-than-spiral nebulae.

15:5.5 (170.8) 3. *Gravity-explosion Planets*. When a sun is born of a spiral or of a barred nebula, not infrequently it is thrown out a considerable distance. Such a sun is highly gaseous, and subsequently, after it has somewhat cooled and condensed, it may chance to swing near some enormous mass of matter, a gigantic sun or a dark island of space. Such an approach may not be near enough to result in collision but still near enough to allow the gravity pull of the greater body to start tidal convulsions in the lesser, thus initiating a series of tidal upheavals which occur simultaneously on opposite sides of the convulsed sun. At their height these explosive eruptions produce a series of varying-sized aggregations of matter which may be projected beyond the gravity-reclamation zone of the erupting sun, thus becoming stabilized in orbits of their own around one of the two bodies concerned in this episode. Later on the larger collections of matter unite and gradually draw the smaller bodies to themselves. In this way many of the solid planets of the lesser systems are brought into existence. Your own solar system had just such an origin.

4. 원심적인 행성 딸. 거대한 태양들은, 특정의 발달 단계에 도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회전 속도가 크게 가속된다면, 그 모체 태양을 계속 도는, 작은 세계들을 형성하도록 곧 이어 조립될 수도 있는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5. 중력-결핍 구체. 개별적 별들의 크기에는 임계적 한계가 있다. 태양이 이 한계에 도달할 때, 만일 그것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리된다; 태양분열이 발생하고, 이 다양성을 갖는 새로운 한 쌍의 별이 태어난다. 수많은 작은 행성들이 이 거대한 분열의 부산물로서 뒤이어 형성되기도 한다.

6. 수축하는 별. 비교적 작은 체계들 안에서 가장 큰 외부 행성은 때로 그 주변에 있는 세계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반면, 태양 가까이에 있는 그 행성들은 그들의 마지막 돌진을 시작한다. 너희 태양계로 설명하면 그러한 종말은 네 개의 안쪽 행성들이 태양에 의해 이끌리고 반면 주요 행성인 목성은 남은 세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계의 그러한 종말의 결과로 두 개의 인접한 그러나 서로 틀린 태양들, 동일한 유형의 두 별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격변들은 초우주 별 집단들의 주변 바깥쪽 이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7. 누적되는 구체.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광대한 양의 물질로부터, 작은 행성들이 서서히 축적될 수 있다. 그것들은 유성(流星)이 불음으로써 그리고 약한 충돌들에 의해 커진다. 일정한 우주 구역의 경우, 그러한 형태의 행성 탄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거주민이 사는 수많은 세계가 그렇게 기원되었다.

밀도가 높은 암흑섬들 중 일부는 우주 안에서 변화하는 에너지의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암흑섬들의 다른 집단은 거대한 양의 차가운 물질, 우주를 떠도는 단순한 단편들과 운석들의 축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물질 집단은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으며, 밀도를 제외하고는 구성면에 있어서 유란시아와 매우 흡사하다.

8. 타 버린 태양. 공간의 암흑섬들 중 일부는 타 버린 고립된 태양들인데, 가용(可用) 공간-에너지가 모두 방출된 상태이다. 조직된 물질 단위들은 충만한 응축, 실질적으로 완료된 응축에 가까우며; 크게 응축된 물질적 그러한 거대한 덩어리가 공간 순환회로들 안에서 다시 충전되고 그리하여 어떤 충돌 또는 똑같이 환원시키는 조화우주 사건 뒤에 우주 기능의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게 되기까지는 길고도 긴 세월이 요구된다.

9. 충돌 구체. 비교적 촘촘하게 성단(星團)을 이루는 그 지역들의 경우에는, 충돌이 희귀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천문상의 재조절은 거대한 예

15:5.6 (171.1) 4. *Centrifugal Planetary Daughters.* Enormous suns, when in certain stages of development, and if their revolutionary rate greatly accelerates, begin to throw off large quantities of matter which may subsequently be assembled to form small worlds that continue to encircle the parent sun.

15:5.7 (171.2) 5. *Gravity-deficiency Spheres.* There is a critical limit to the size of individual stars. When a sun reaches this limit, unless it slows down in revolutionary rate, it is doomed to split; sun fission occurs, and a new double star of this variety is born. Numerous small planets may be subsequently formed as a by-product of this gigantic disruption.

15:5.8 (171.3) 6. *Contractural Stars.* In the smaller systems the largest outer planet sometimes draws to itself its neighboring worlds, while those planets near the sun begin their terminal plunge. With your solar system, such an end would mean that the four inner planets would be claimed by the sun, while the major planet, Jupiter, would be greatly enlarged by capturing the remaining worlds. Such an end of a solar system would result in the production of two adjacent but unequal suns, one type of double star formation. Such catastrophes are infrequent except out on the fringe of the superuniverse starry aggregations.

15:5.9 (171.4) 7. *Cumulative Spheres.* From the vast quantity of matter circulating in space, small planets may slowly accumulate. They grow by meteoric accretion and by minor collisions. In certain sectors of space, conditions favor such forms of planetary birth. Many an inhabited world has had such an origin.

15:5.10 (171.5) Some of the dense dark islands are the direct result of the accretions of transmuting energy in space. Another group of these dark islands have come into being by the accumulation of enormous quantities of cold matter, mere fragments and meteors, circulating through space. Such aggregations of matter have never been hot and, except for density, are in composition very similar to Urantia.

15:5.11 (171.6) 8. *Burned-out Suns.* Some of the dark islands of space are burned-out isolated suns, all available space-energy having been emitted. The organized units of matter approximate full condensation, virtual complete consolidation; and it requires ages upon ages for such enormous masses of highly condensed matter to be recharged in the circuits of space and thus to be prepared for new cycles of universe function following a collision or some equally revivifying cosmic happening.

15:5.12 (171.7) 9. *Collisional Spheres.* In those regions of thicker clustering, collisions are not uncommon. Such an astronomic readjustment is

너지 변화와 물질 변형이 동반된다. 죽은 태양들을 포함하는 충돌들은 널리 퍼진 에너지 동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 충돌 파편들은 나중에 행성 몸체들이 필사자 거주에 알맞게 형성되도록 물질적 핵들을 종종 구성한다.

10. 고안건축 세계.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 그리고 우리 초우주의 정부의 소재지인 유버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 세워진 세계들이 있다.

태양을 진화시키고 행성을 분리시키는 많은 다른 기법들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별 체계들과 행성 집단이 실존하게 되는 방법들을 암시한다. 별의 탈바꿈과 행성이 진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다양한 기법들을 적으려고 시도하려면 거의 100가지 다른 방법으로 태양이 형성되고 행성이 기원된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너희 별 연구자들이 하늘을 살펴보면 별이 진화하는 이 모든 양상들을 알려주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지만,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로서 이용되는 물질인, 그 작은 광채가 없는 물질더미들, 광대한 물질적 창조계의 가장 중요한 것의 형성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accompanied by tremendous energy changes and matter transmutations. Collisions involving dead suns are peculiarly influential in creating widespread energy fluctuations. Collisional debris often constitutes the material nucleuses for the subsequent formation of planetary bodies adapted to mortal habitation.

15:5.13 (172.1) 10. *Architectural Worlds*. These are the worlds which are built according to plans and specifications for some special purpose, such as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and Uversa, the seat of government of our superuniverse.

15:5.14 (172.2) There are numerous other techniques for evolving suns and segregating planets, but the foregoing procedures suggest the methods whereby the vast majority of stellar systems and planetary families are brought into existence. To undertake to describe all the various techniques involved in stellar metamorphosis and planetary evolution would require the narration of almost one hundred different modes of sun formation and planetary origin. As your star students scan the heavens, they will observe phenomena indicative of all these modes of stellar evolution, but they will seldom detect evidence of the formation of those small, nonluminous collections of matter which serve as inhabited planets, the most important of the vast material creations.

제 6 장. 공간의 구체

기원에 상관없이, 공간의 다양한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1. 태양들—공간의 별.
2. 공간의 암흑섬.
3. 작은 공간 몸체들—혜성, 운석, 작은 행성체.
4. 행성,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포함
5. 고안건축 구체들—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고안건축 구체들은 제외하고는, 모든 우주 몸체들은 진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진화적이라는 것은 신(神)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진화적이며, 창조되었거나 그리고 결국 생겨난 많은 신(神)의 지능체들의 작용을 통하여 두루 하느님의 창조적 활동들이 시간-공간 기법에 따라서 펼쳐져 왔다는 의미에서의 진화적이다.

태양. 이것들은 그들의 모든 다양한 실존의 단계들에 있는 우주의 별들이다. 어떤 것들은 홀로 진화하는 공간 체계들이다; 다른 것들은 이중적 별들, 수축하거나 없어지는 행성 체계들이다. 우주의 별

6. THE SPHERES OF SPACE

15:6.1 (172.3) Irrespective of origin, the various spheres of space are classifiable into the following major divisions:

15:6.2 (172.4) 1. The suns — the stars of space.

15:6.3 (173.1) 2. The dark islands of space.

15:6.4 (173.2) 3. Minor space bodies — comets, meteors, and planetesimals.

15:6.5 (173.3) 4. The planets, including the inhabited worlds.

15:6.6 (173.4) 5. Architectural spheres — worlds made to order.

15:6.7 (173.5) With the exception of the architectural spheres, all space bodies have had an evolutionary origin, evolutionary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been brought into being by fiat of Deity, evolutionary in the sense that the creative acts of God have unfolded by a time-space technique through the operation of many of the created and eventuated intelligences of Deity.

15:6.8 (173.6) *The Suns*. These are the stars of space in all their various stages of existence. Some are solitary evolving space systems; others are double stars, contracting or disappearing

들은 1,000여 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상태들과 단계들로 존재한다. 너희는 열을 수반하면서 빛을 내는 태양에 익숙해 있지만; 열을 내지 않고 빛나는 태양들도 있다.

평범한 태양 하나가 열과 빛을 수 조(兆) 년 동안 계속 방출할 것이라는 사실은 물질의 각 단위가 포함하는 에너지의 광대한 저장량을 잘 설명해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입자들 속에 저장된 실제적인 에너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타오르는 태양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열 압력과 그에 연관된 에너지 활동에 종속될 때, 거의 전부가 빛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들이 이 태양들로 하여금 확립된 공간 순환회로들 안에서 자신들의 길을 따라오는 공간의 에너지 대부분을 변환시키고 방출해 낼 수 있게 한다. 물리적 에너지의 여러 위상들과 물질의 모든 형태들은 태양 발전기로 끌려 들어가고 뒤이어 그것에 의해 분배된다. 그 태양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적인 힘-통제장소로서 에너지 순환의 지역적 가속자(加速者)들로서 봉사한다.

오르본톤 초우주는 10조 개가 넘는 타오르는 태양들에 의해 빛을 받고 따듯해진다. 이 태양들은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 천문 체계에 속하는 별들이다. 2조 개 이상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작아서 유란시아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주(主)우주 안에는 너희 세계의 바닷물을 유리잔에 담을 때 그 잔의 개수만큼 많은 태양들이 있다.

공간의 암흑섬. 이것들은 죽은 태양들 그리고 빛과 열이 없는 물질의 거대한 다른 집합체들이다. 암흑섬들은 때로 거대한 덩어리이며 우주 평형과 에너지 처리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 이 큰 덩어리들 중 일부의 밀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거대하게 농축된 이 덩어리는 이들 암흑섬들로 하여금 강력한 평형 바퀴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웃에 있는 큰 체계들을 효과적인 끈으로 붙들고 있다. 그것들은 많은 별자리들 안에서 힘의 중력 균형을 유지한다; 그것들이 없다면 가까이 있는 태양들 안으로 급속도로 파괴되어 들어갈 많은 물리적 체계들이 이 수호자 암흑섬들의 중력 지배 속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몸체들의 중력 작용을 측정해 왔으며, 따라서 우리는 공간의 암흑섬들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주어진 체계를 그 경로 안에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작은 공간 몸체. 유성들과 우주 안에서 떠돌고 진화하는 물질의 다른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와 물질 본체의 거대한 집합체를 구성한다.

많은 혜성들은 태양 모체(母體) 바퀴의 정돈되지 않은 거친 자손인데, 그것들은 중앙에서 지

planetary systems. The stars of space exist in no less than a thousand different states and stages. You are familiar with suns that emit light accompanied by heat; but there are also suns which shine without heat.

15:6.9 (173.7) The trillions upon trillions of years that an ordinary sun will continue to give out heat and light well illustrates the vast store of energy which each unit of matter contains. The actual energy stored in these invisible particles of physical matter is well-nigh unimaginable. And this energy becomes almost wholly available as light when subjected to the tremendous heat pressure and the associated energy activities which prevail in the interior of the blazing suns. Still other conditions enable these suns to transform and send forth much of the energy of space which comes their way in the established space circuits. Many phases of physical energy and all forms of matter are attracted to, and subsequently distributed by, the solar dynamos. In this way the suns serve as local accelerators of energy circulation, acting as automatic power-control stations.

15:6.10 (173.8)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illuminated and warmed by more than ten trillion blazing suns. These suns are the stars of your observable astronomic system. More than two trillion are too distant and too small ever to be seen from Urantia. But in the master universe there are as many suns as there are glasses of water in the oceans of your world.

15:6.11 (173.9) *The Dark Islands of Space.* These are the dead suns and other large aggregations of matter devoid of light and heat. The dark islands are sometimes enormous in mass and exert a powerful influence in universe equilibrium and energy manipulation. The density of some of these large masses is well-nigh unbelievable. And this great concentration of mass enables these dark islands to function as powerful balance wheels, holding large neighboring systems in effective leash. They hold the gravity balance of power in many constellations; many physical systems which would otherwise speedily dive to destruction in near-by suns are held securely in the gravity grasp of these guardian dark islands. It is because of this function that we can locate them accurately. We have measured the gravity pull of the luminous bodies, and we can therefore calculate the exact size and location of the dark islands of space which so effectively function to hold a given system steady in its course.

15:6.12 (173.10) *Minor Space Bodies.* The meteors and other small particles of matter circulating and evolving in space constitute an enormous aggregate of energy and material substance.

15:6.13 (173.11) Many comets are unestablished wild offspring of the solar mother wheels, which are

배하는 태양의 통제 밑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혜성들은 또한 수많은 다른 기원들을 갖는다. 혜성의 꼬리는 잡아당기는 몸체나 태양으로부터의 흔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크게 팽창된 기체들의 전기적 반작용 때문이며 그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빛 그리고 다른 에너지들의 실제적 압력 때문이다. 이 현상은 빛의 실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에너지들에 대한 명확한 증명들 중 하나를 구성한다; 그것은 빛이 무게를 갖고 있음을 실증한다. 빛은 실제 물질이며, 단순히 가정적인 에테르의 파동이 아니다.

행성. 이것들은 하나의 태양 또는 어떤 다른 공간 몸체 주변의 궤도를 따라가는 물질의 더욱 큰 집합체이다; 그것들의 크기의 범위는 작은 행성으로부터 거대한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의 구체에까지 이른다. 궤도는 공간 물질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져 온 차가운 세계들은, 그것들이 우연히 가까이에 있는 태양과 적당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지능적인 거주민들이 정착하기에 더욱 이상적인 행성이다. 대체로, 식어버린 태양들은 창조체에게 적합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대개 살아있는, 타오르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그것들은 너무 부피가 크며; 중력이 그 표면에서 너무 크다.

너희 초우주의 경우에 40개 중 한 개의 차가운 행성도 너희 계층의 존재들이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과도하게 가열된 태양들과 주변의 얼어붙은 세계들은 비교적 높은 창조체를 정착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너희 태양계 안에서는 오직 세 개의 행성들만이 현재 창조체를 정착시키기에는 적합하다. 크기와 밀도와 위치에 있어서, 유란시아는 많은 점에서 인간 거주지로 이상적이다.

물리적-에너지 활동 법칙들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이지만, 개별 행성들 그리고 지역체계들을 지배하는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적 영향력들이 많이 작용한다. 창조체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현시활동들의 거의 끝없는 다양성이 공간의 셀 수 없는 세계들을 특징짓는다. 아무튼, 주어진 체계 안에서 연관된 세계들의 한 집단 안에는 일정한 관점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반면, 또한 지능창조체의 우주 원형들도 존재한다. 같은 물리적 순환회로에 속하는 행성 체계들 사이에는 물리적 관계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주들의 순환계 둘레를 끝없이 진동하면서 서로 가깝게 따라간다.

제 7 장. 고안건축 구체

각 초우주 정부가 그것의 공간 구역의 진화하는 우주들의 중심 가까이에 위치하는 반면, 그것은 계층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차지하고 공인된 개인성들로 채워져 있다. 이 본부 세계들은 고안건축 구체들,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이하게 구축된 공간 몸체들이다. 한편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태양들의 빛을 공유하지만, 이들 구체들은 독립적으로 빛을 받고 열을 받는다. 각각은 파라다이스의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열없이 빛

being gradually brought under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ing sun. Comets also have numerous other origins. A comet's tail points away from the attracting body or sun because of the electrical reaction of its highly expanded gases and because of the actual pressure of light and other energies emanating from the sun. This phenomenon constitutes one of the positive proofs of the reality of light and its associated energies; it demonstrates that light has weight. Light is a real substance, not simply waves of hypothetical ether.

15.6.14 (173.12) *The Planets.* These are the larger aggregations of matter which follow an orbit around a sun or some other space body; they range in size from planetesimals to enormous gaseous, liquid, or solid spheres. The cold worlds which have been built up by the assemblage of floating space material, when they happen to be in proper relation to a near-by sun, are the more ideal planets to harbor intelligent inhabitants. The dead suns are not, as a rule, suited to life; they are usually too far away from a living, blazing sun, and further, they are altogether too massive; gravity is tremendous at the surface.

15.6.15 (173.13) In your superuniverse not one cool planet in forty is habitable by beings of your order. And, of course, the superheated suns and the frigid outlying worlds are unfit to harbor higher life. In your solar system only three planets are at present suited to harbor life. Urantia, in size, density, and location, is in many respects ideal for human habitation.

15.6.16 (173.14) The laws of physical-energy behavior are basically universal, but local influences have much to do with the physical conditions which prevail on individual planets and in local systems. An almost endless variety of creature life and other living manifestations characterizes the countless worlds of space. There are, however, certain points of similarity in a group of worlds associated in a given system, while there also is a universe pattern of intelligent life. There are physical relationships among those planetary systems which belong to the same physical circuit, and which closely follow each other in the endless swing around the circle of universes.

7. THE ARCHITECTURAL SPHERES

15.7.1 (174.1) While each superuniverse government presides near the center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its space segment, it occupies a world made to order and is peopled by accredited personalities.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rchitectural spheres, space bodies specifically constructed for their special purpose. While sharing the light of near-by suns, these spheres are independently lighted and heated. Each has a

을 발하는 하나의 태양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각 각에게는 그 구체의 표면 가까이 있는 일정한 에너지 흐름의 순환으로 인해 열이 공급된다. 이 본부 세계들은 그들 각각의 초우주들의 천문상의 중심 주변에 위치한 더 큰 체계들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시간은 초우주들의 본부에서 표준화되어 있다. 오르본톤 초우주의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30일에 해당하며, 오르본톤의 1년은 100 표준일과 같다. 이 유버사의 한 해가 일곱 번째 초우주 안에서 표준이 되며, 그것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0일보다 22분 짧은데, 너희 햇수로 볼 때 약 8과 5분의 1년이 된다.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은 파라다이스의 본성과 웅장함, 그들의 완전의 중심 원형들을 함께한다. 실제로서, 모든 본부 세계들은 파라다이스와 같다. 그들은 정말로 천상의 거주지이고, 그들은 예루셈에서 중앙 섬까지 물질적 크기, 모론시아 아름다움 그리고 영(靈) 영광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이 본부 세계들의 모든 위성들 역시 고 안전축 구체들이다.

다양한 본부 세계들에는 모든 위상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창조가 제공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우주들의 이 집합장소 세계들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필사 창조체들이 우주를 상승할 때, 물질적 영역으로부터 영적 영역으로 지나가면서, 그들의 그 이전 실존의 차원들에 있는 감사와 즐거움을 결코 잃지 않는다.

예루셈은, 사타니아라는 너희 지역체계의 본부인데, 과도기 문화의 일곱 세계들을 갖고 있다, 그 각각은 일곱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는 모론시아 역류의 일곱 거주세계들, 사람의 첫 사후(死後) 거주지가 있다. 하늘이라는 말이 유란시아에서 사용되어 왔을 때, 그것은 때로 이 일곱 맨션세계들을 의미해 왔는데, 첫 맨션세계는 첫 하늘이라고 불리고, 그런 식으로 일곱 번째까지 계속된다.

에덴시아는, 놀라시아텍이라는 너희 별자리의 본부인데, 사회화하는 문화와 훈련의 70개 위성들을 갖고 있으며, 그 위에서 상승자들은 개인성 동원과 통일 그리고 실현이라는 예루셈 체제의 완성 위에서 머무른다.

구원자별은, 너희 지역우주 네바돈의 수도인데, 각각 49개의 구체들을 갖는 10개의 대학 군(群)들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신의 별자리 사회화를 마치면서 영성화 한다.

제3 유-소서울은, 너희 소구역 엔사의 본부인데, 상승하는 삶의 보다 높은 물리적 연구의 일곱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sun which gives forth light without heat, like the satellites of Paradise, while each is supplied with heat by the circulation of certain energy currents near the surface of the sphere. These headquarters worlds belong to one of the greater systems situated near the astronomical center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15.7.2 (174.2) Time is standardized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The standard day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equal to almost thirty days of Urantia time, and the Orvonton year equals one hundred standard days. This Uversa year is standard in the seventh superuniverse, and it is twenty-two minutes short of three thousand days of Urantia time, about eight and one fifth of your years.

15.7.3 (174.3)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partake of the nature and grandeur of Paradise, their central pattern of perfection. In reality, all headquarters worlds are paradisiacal. They are indeed heavenly abodes, and they increase in material size, morontia beauty, and spirit glory from Jerusem to the central Isle. And all the satellites of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lso architectural spheres.

15.7.4 (174.4)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re provided with every phase of material and spiritual creation. All kinds of material, morontial, and spiritual beings are at home on these rendezvous worlds of the universes. As mortal creatures ascend the universe, passing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realms, they never lose their appreciation for, and enjoyment of, their former levels of existence.

15.7.5 (174.5) *Jerus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Satania, has its seven worlds of transition culture, each of which is encircled by seven satellites, among which are the seven mansion worlds of morontia detention, man's first postmortal residence. As the term heaven has been used on Urantia, it has sometimes meant these seven mansion worlds, the first mansion world being denominated the first heaven, and so on to the seventh.

15.7.6 (174.6) *Edentia*, the headquarters of your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has its seventy satellites of socializing culture and training, on which ascenders sojourn upon the completion of the Jerusem regime of personality mobilization, unification, and realization.

15.7.7 (174.7) *Salvington*, the capital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is surrounded by ten university clusters of forty-nine spheres each. Hereon is man spiritualized following his constellation socialization.

15.7.8 (174.8) *Uminor the third*, the headquarters of your minor sector, Ensa, is surrounded by the seven spheres of the higher physical studies of the

제5 유-대서울은, 너희 대구역 스프랜돈의 본부인데, 그 초우주의 전진하는 지능 훈련의 70개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유버사, 너희 초우주인 오르본톤의 본부는,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을 위한 전진하는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일곱 개의 비교적 높은 대학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놀라운 구체인이 일곱 군(群) 각각은 시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앞서 재교육되고 재시험되는 우주 훈련 그리고 영 문화에 헌신된 수천 수만에 이르는 충만한 연구소들과 조직들을 포함하는 70개의 특별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의 순례자들이 도착함은 이들 연관된 세계들에서 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떠나가는 졸업생들은 항상 유버사의 바닷가로부터 직접 하보나 방향을 향해 파송된다.

유버사는 대략 1조에 이르는 거주민이 사는 또는 거주 가능한 세계들을 위한, 영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본부이다. 오르본톤 수도의 영광과 장려함과 완전성은 시간-공간 창조계의 어떤 경이로움보다도 뛰어나다.

만일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 그리고 그 구성 부분들 전체가 확립되면, 일곱 초우주에는 5,000억 개보다 약간 적은 고안건축 세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제 8 장. 에너지 통제와 규제

그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은, 그들의 구성 지역우주들에게 에너지의 방향성구현에 대한 초점으로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건설되었기에, 그들의 다양한 구역들을 위한 효과적인 힘-에너지 규제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조직된 공간에 두루 순환하는 물리적 에너지들을 균형 잡고 통제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 깊은 규제적 기능들은 초우주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 특정한 이 목적을 위해 구성된 생명의 그리고 반 생명의 지능 실존개체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힘 중심들과 통제자들을 납득하기는 어려우며; 비교적 낮은 계층들은 의식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의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능들은 매우 지능적이지만 겉보기에 자동적이며 그들의 매우 전문화된 조직으로 선천적이다. 그 초우주들의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은 중력소(重力素)권역을 구성하는 30개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방향과 부분적 통제를 떠맡는다. 유버사의 힘 중심들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물리적-에너지 순환회로들은 그 초우주를 한 바퀴 돌기까지 9억 6,800 만 년보다 약간 더 걸린다.

ascendant life.

15.7.9 (174.9) *Umajor the fifth*, the headquarters of your major sector, Splandon, is surrounded by the seventy spheres of the advancing intellectual training of the superuniverse.

15.7.10 (175.1) *Uversa*, the headquarters of Orvonton, your superuniverse, is immediately surrounded by the seven higher universities of advanced spiritual training for ascending will creatures. Each of these seven clusters of wonder spheres consists of seventy specialized worlds containing thousands upon thousands of replet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devoted to universe training and spirit culture wherein the pilgrims of time are re-educated and re-examined preparatory to their long flight to Havona. The arriving pilgrims of time are always received on these associated worlds, but the departing graduates are always dispatched for Havona direct from the shores of Uversa.

15.7.11 (175.2) *Uversa* is the spiritual and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approximately one trillion inhabited or inhabitable worlds. The glory, grandeur, and perfection of the Orvonton capital surpass any of the wonders of the time-space creations.

15.7.12 (175.3) If all the projected local universes and their component parts were established, there would be slightly less than five hundred billion architectural world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8. ENERGY CONTROL AND REGULATION

15.8.1 (175.4)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uperuniverses are so constructed that they are able to function as efficient power-energy regulators for their various sectors, serving as focal points for the directionization of energy to their component local universes. They exert a powerful influence over the balance and control of the physical energies circulating through organized space.

15.8.2 (175.5) Further regulative functions are performed by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living and semiliving intelligent entities constituted for this express purpose. These power centers and controllers are difficult of understanding; the lower orders are not volitional, they do not possess will, they do not choose, their functions are very intelligent but apparently automatic and inherent in their highly specialized organization.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s assume direction and partial control of the thirty energy systems which comprise the gravita domain. The physical-energy circuits administered by the power centers of Uversa require a little over 968 million

진화하는 에너지는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무게가 항상 상대적이고, 회전 속도, 질량 그리고 반(反)중력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무게를 갖고 있다. 물질에서 질량은 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어느곳에나-제시되는 에너지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주어진 속도의 자질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질량에 의한 지연을 빼고, 초우주의 살아있는 에너지 통제자들의 규제 기능과 근처의 높게 가열된 또는 무겁게 충전된 몸체들의 물리적 영향을 더한 것이다.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적 계획은 작은 물질 단위(單位)들을 만들고 부수는 영속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주 힘 지도자들은 다양한 양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억류하거나 확대하고 방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연시키는 영향력이 충분한 기간 동안 주어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요인들이 없다면 중력은 결국에는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것이다: 첫째, 에너지 통제자들의 반(反)중력 영향력 때문이고, 둘째 아주 뜨거운 별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리고 크게 에너지화된 응축된 물질의 차가운 몸체 근처의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서, 조직화된 물질의 집대성이-해체하는 경향 때문이다.

질량이 과도하게 집적되어 에너지 균형을 깨트릴, 물리적 힘 순환회로들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을 때, 공간의 죽은 거성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누적된 중력의 집합을 한 순간에 완벽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지나치게 물질화하는 중력 자체의 계속적인 경향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물리통제자들이 개입한다. 이러한 충돌의 에피소드에서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들은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에너지로 갑자기 변환되며, 우주적 평형을 위한 투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결국에는 비교적 큰 물리적 체계들이 안정을 이루게 되고, 물리적으로 정착되며, 초우주들의 균형이 잡히고 확립된 순환회로들 안으로 휘돌아 회전해 들어간다. 이 결과 이후에는 그러한 확립된 체계들 안에서는 더 이상 충돌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다른 격변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양(陽) 에너지 시대에는 힘 교란과 열 동요가 전기적 현시활동을 동반한다. 음(陰) 에너지 시대 동안에는, 물질이 집합하고 응축하며 좀 더 섬세하게 균형이 잡힌 순환회로들에서 통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로 주기적인 물결 같거나 혹은 부딪치는 조절이 오며 그것이 순환하는 에너지와 더 실질적으로 안정된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재빨리 회복시킨다. 타오르는 태양들과 공간의 암흑점들의 습성이 될 만한 것들을 예측하는 일 또는 납득하는 일은 천상의 별 관찰자들의 임무들 중의 하나이다.

years to complete the encirclement of the superuniverse.

15:8.3 (175.6) Evolving energy has substance; it has weight, although weight is always relative, depending on revolutionary velocity, mass, and antigravity. Mass in matter tends to retard velocity in energy; and the anywhere-present velocity of energy represents: the initial endowment of velocity, minus retardation by mass encountered in transit, plus the regulatory function of the living energy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 and the physical influence of near-by highly heated or heavily charged bodies.

15:8.4 (175.7) The universal plan for the maintenance of equilibrium between matter and energy necessitates the everlasting making and unmaking of the lesser material units.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the ability to condense and detain, or to expand and liberate, varying quantities of energy.

15:8.5 (175.8) Given a sufficient duration of retarding influence, gravity would eventually convert all energy into matter were it not for two factors: First, because of the antigravity influences of the energy controllers, and second, because organized matter tends to disintegrate under certain conditions found in very hot stars and under certain peculiar conditions in space near highly energized cold bodies of condensed matter.

15:8.6 (176.1) When mass becomes overaggregated and threatens to unbalance energy, to deplete the physical power circuits, the physical controllers intervene unless gravity's own further tendency to overmaterialize energy is defeated by the occurrence of a collision among the dead giants of space, thus in an instant completely dissipating the cumulative collections of gravity. In these collisional episodes enormous masses of matter are suddenly converted into the rarest form of energy, and the struggle for universal equilibrium is begun anew. Eventually the larger physical systems become stabilized, become physically settled, and are swung into the balanced and established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Subsequent to this event no more collisions or other devastating catastrophes will occur in such established systems.

15:8.7 (176.2) During the times of plus energy there are power disturbances and heat fluctuations accompanied by electrical manifestations. During times of minus energy there are increased tendencies for matter to aggregate, condense, and to get out of control in the more delicately balanced circuits, with resultant tidal or collisional adjustments which quickly restore the balance between circulating energy and more literally stabilized matter. To forecast and otherwise to understand such likely behavior of the blazing suns and the dark islands of space is one of the

우리는 우주 평형을 다스리는 법칙들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우주 안정성에 관하여 많이 예측할 수 있다. 실천적으로, 우리의 예측은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작용의 법칙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어떤 기체들과 항상 대면하게 된다.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진행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직접적 관리-행정의 경계 너머를 지나갈 때, 우리는 확립된 표준들에 따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문상의 체계들의 물리적 현상에 행하는 배타적으로 가진 관찰들과 관련되어 얻어진 체험에 따라 계산 할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일에 직면한다. 심지어는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들 안에서도 우리는, 모든 우리의 권역에 가득 퍼져있고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들에 두루 통합된 평형에서 확장되어 있는, 기체 활동들과 에너지 반응들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더 멀리 밖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절대자들과 체험적 신(神)들의 헤아릴 수 없는 현존-활동행위들의 그렇게 틀림없는 특징인, 저 변동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에 점점 더 많이 부딪힌다. 그리고 이들 현상들은 만물에 대한 어떤 우주적 전반적-통제를 암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오르본톤 초우주는 길으로 보기에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외부 우주들은 전례 없는 미래 활동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 하보나 우주는 영원히 안정되어 있다. 중력과 열의 부재(차가움)는 물질을 함께 조직하고 붙잡는다; 열과 반(反)중력은 물질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살아있는 힘 지도자들과 기체조직자들은 우주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 그리고 다시 만드는 끝없는 형태변형들을 특별히 통제하고 지능적으로 지도하는 비밀이다. 성운들은 흩어지고 태양들은 타버리고 체계들은 사라지고 행성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들은 멈추지 않는다.

제 9 장. 초우주의 순환회로

파라다이스의 우주적 순환회로들이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들에 실제적으로 가득 퍼져있다. 이 현존 순환회로들은 다음과 같다: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중력(重力), 영원한 아들의 영적 중력,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 영원 섬의 물질적 중력.

우주적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 이외에 그리고 절대자들과 체험적 신(神)들의 현존-활동행위들 이외에, 초우주 공간 차원 안에서는 오직 두 에너지-회로 부문, 곧 힘 분할이 기능하는데 : 초우주 순환회로들과 지역우주 순환회로들이다.

tasks of the celestial star observers.

15:8.8 (176.3) We are able to recognize most of the laws governing universe equilibrium and to predict much pertaining to universe stability. Practically, our forecasts are reliable, but we are always confronted by certain forces which are not wholly amenable to the laws of energy control and matter behavior known to us. The predictability of all physical phenomena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as we proceed outward in the universes from Paradise. As we pass beyond the borders of the personal administration of the Paradise Rulers, we are confronted with increasing inability to reck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and the experience acquired in connection with observations having exclusively to do with the physical phenomena of the near-by astronomic systems. Even in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e are living in the midst of force actions and energy reactions which pervade all our domains and extend in unified equilibrium on through all regions of outer space.

15:8.9 (176.4) The farther out we go, the more certainly we encounter those variational and unpredictable phenomena which are so unerringly characteristic of the unfathomable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and the experiential Deities. And these phenomena must be indicative of some universal overcontrol of all things.

15:8.10 (176.5)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s apparently now running down; the outer universes seem to be winding up for unparalleled future activities; the central Havona universe is eternally stabilized. Gravity and absence of heat (cold) organize and hold matter together; heat and antigravity disrupt matter and dissipate energy. The living power directors and force organizers are the secret of the special control and intelligent direction of the endless metamorphoses of universe making, unmaking, and remaking. Nebulae may disperse, suns burn out, systems vanish, and planets perish, but the universes do not run down.

9.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15:9.1 (176.6) The universal circuits of Paradise do actually pervade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se presence circuits are: the personality gravity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Eternal Son,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material gravity of the eternal Isle.

15:9.2 (177.1) In addition to the universal Paradise circuits and in addition to the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and the experiential Deities, there function within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only two energy-circuit divisions or

초우주 순환회로들:

1.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의 통합하는 지능적 순환회로. 그러한 조화우주-마음 순환회로는 하나의 초우주로 제한된다.

2. 각 초우주 안에 있는 일곱 반영 영들의 반영하는-봉사 순환회로.

3. 신비 감시자들의 비밀 순환회로. 신성별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파라다이스에 있는 우주 아버지에게 상호-연관시키고 연결해 준다.

4. 영원한 아들이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들과 상호 교제하는 순환회로.

5. 무한한 영의 순간적 현존.

6. 파라다이스의 방송,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7.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에너지 순환회로.

지역우주 순환회로들:

1.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영, 증여 세계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영.

2. 신성한 사명활동자들,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 너희 세계의 성령의 순환회로

3. 다양하게 기능하는 보조 마음-영들의 현존을 포함하여, 지역우주의 지능-사명활동 순환회로.

지역우주 안에 그러한 영적 조화가 발전되어 그것의 개별적 그리고 병합된 순환회로들이 그 초우주의 순환회로들로부터 구별할 수 없게 되면, 기능의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활동의 하나 됨이 실재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그 지역우주는 빛과 생명의 정착된 순환회로들 안으로 즉시 휘돌아 회전하며 들어오는데, 초(超)창조의 완전해진 연합에 대한 영적 동맹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을 즉시 갖추게 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조건들, 초우주 동맹 안에서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안정성. 지역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평형의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즉각적인 별의 탈바꿈 기간이 끝나야만 한다. 우주는 어떤 분명한 행로를 따라 진행해야만 하며; 그 궤도는 안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되어야만 한다.

2. 영적 충성심. 그러한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지배하는 하느님의 주권자 아들에 대한 우주적 이해와 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만 한다. 전체 지역우주의 개별 행성들, 체계들, 그리고 별자리

power segregations: the superuniverse circuits and the local universe circuits.

15:9.3 (177.2) *The Superuniverse Circuits:*

15:9.4 (177.3) 1. The unifying intelligence circuit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Such a cosmic-mind circuit is limited to a single superuniverse.

15:9.5 (177.4) 2. The reflective-service circuit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in each superuniverse.

15:9.6 (177.5) 3. The secret circuits of the Mystery Monitors, in some manner interassociated and routed by Divinington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15:9.7 (177.6) 4. The circuit of the intercommunion of the Eternal Son with his Paradise Sons.

15:9.8 (177.7) 5. The flash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15:9.9 (177.8) 6. The broadcasts of Paradise, the space reports of Havona.

15:9.10 (177.9) 7. The energy circuits of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15:9.11 (177.10) *The Local Universe Circuits:*

15:9.12 (177.11) 1. The bestowal spirit of the Paradise Sons, the Comforter of the bestowal worlds.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Michael on Urantia.

15:9.13 (177.12) 2. The circuit of the Divine Minister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the Holy Spirit of your world.

15:9.14 (177.13) 3. The intelligence-ministry circuit of a local universe, including the diversely functioning presence of the adjutant mind-spirits.

15:9.15 (177.14) When there develops such a spiritual harmony in a local universe that its individual and combined circuits become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the superuniverse, when such identity of function and oneness of ministry actually prevail, then does the local universe immediately swing into the settled circuits of light and life, becoming at once eligible for admission into the spiritual confederation of the perfected union of the supercreation. The requisites for admission to the councils of the Ancients of Days, membership in the superuniverse confederation, are:

15:9.16 (177.15) 1. *Physical Stability.* The stars and planets of a local universe must be in equilibrium; the periods of immediate stellar metamorphosis must be over. The universe must be proceeding on a clear track; its orbit must be safely and finally settled.

15:9.17 (177.16) 2. *Spiritual Loyalty.* There must exist a state of universal recognition of, and loyalty to, the Sovereign Son of God who presides over the affairs of such a local universe. There must have

들 사이에 조화로운 협동의 상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너희 지역우주는 그 초우주의 정착된 물리적 계층에 속한다는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고, 초(超)정부의 인정받는 영적 집단의 회원으로서 남기에는 더욱 부족한 상태이다. 비록 네바돈이 유버사에 아직도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내가 유버사로부터 유란시아로 직접 온 것과 마찬가지로, 초우주 정부에 속한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세계들에게 보내진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희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우주가 초우주 집단의 연관된 창조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충만하게 인정될 정도로 분별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제 10 장. 초우주의 통치자

초우주들의 본부들은 시간-공간 영역들에 대한 높은 영적 정부가 있는 자리들이다. 초(超)정부의 행정 분야는, 삼위일체의 협의회들에서 지원되는데, 최극 감독의 일곱 주(主) 영들 중 한 분, 파라다이스 권한의 보좌들에 앉아 있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일곱 특별 세계들, 파라다이스의 가장 밖에 있는 위성들에 위치한 일곱 최극집행자들을 통하여 초우주들을 관리-운영하시는 분에 의해 즉각적으로 지도된다.

그 초우주 본부들은 반영 영들과 반영 영상 도움자들이 거하는 곳들이다. 이 중도적 위치로부터 이 기이한 존재들은 그들의 거대한 반영성 작업들을 행위로써 이끌며, 그리하여 위로는 중앙우주에 그리고 아래로는 지역우주에 사명활동한다.

각 초우주는 초(超)정부의 공동 우두머리 집행자들인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의 행정 분야에는 그 초우주 정부의 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다른 집단들을 구성한다:

1. 옛적으로 늘 계신이.
2. 지혜의 완전자.
3. 신성한 조언자.
4. 우주 검열자.
5. 막강한 메신저.
6. 높은 권한자.
7. 이름-번호 없는 자.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10억 명의 지혜의 완전자들의 무리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

come into being a state of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individual planets, systems, and constellations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15:9.18 (177.17) Your local universe is not even reckoned as belonging to the settled physical order of the superuniverse, much less as holding membership in the recognized spiritual family of the supergovernment. Although Nebadon does not yet have representation on Uversa, we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are dispatched to its worlds on special missions from time to time, even as I have come to Urantia directly from Uversa. We lend every possible assistance to your directors and rulers in the solution of their difficult problems; we are desirous of seeing your universe qualified for full admission into the associated creations of the superuniverse family.

10.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15:10.1 (178.1)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are the seats of the high spiritual government of the time-space domains.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government, taking origin in the Councils of the Trinity, is immediately directed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supreme supervision, beings who sit upon seats of Paradise authority and administer the superuniverses throug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stationed on the seven special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the outermost satellites of Paradise.

15:10.2 (178.2)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are the abiding places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 Reflective Image Aids. From this midway position these marvelous beings conduct their tremendous reflectivity operations, thus ministering to the central universe above and to the local universes below.

15:10.3 (178.3) Each superuniverse is presided over by three Ancients of Days, the joint chief executives of the supergovernment. In its executive branch the personnel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consists of seven different groups:

15:10.4 (178.4) 1. Ancients of Days.

15:10.5 (178.5) 2. Perceptors of Wisdom.

15:10.6 (178.6) 3. Divine Counselors.

15:10.7 (178.7) 4. Universal Censors.

15:10.8 (178.8) 5. Mighty Messengers.

15:10.9 (178.9) 6. Those High in Authority.

15:10.10 (178.10) 7.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15:10.11 (178.11) The three Ancients of Days are immediately assisted by a corps of one billion

는데, 30억 명의 신성한 조연자들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자들이 각 초우주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다. 이 세 집단들은 조화-협동 삼위일체 개인성들인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성하게 지원된다.

나머지 세 계층들, 막강한 메신저들과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영화롭게 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이다. 이 계층들 중 첫 번째는 상승 체제를 통하여 올라왔고 그랜한다의 시대에 하보나를 통해 지나갔다.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면서, 그들은 최초의 무리단에 모집되었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되었으며, 그 후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숭고한 업무에 배정되었다. 등급으로 볼 때, 이 세 계층들은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로 알려지는데, 이원적(二元的) 지원을 갖지만 지금은 삼위일체 봉사의 존재이다. 그리하여 초우주 정부의 행정 분야는 진화 세계들의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 자녀들을 포함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초우주의 조화-협동 협의회는 앞에서 이름이 거론된 일곱 행정 집단들과 다음의 구역 통치자들과 그리고 다른 지역 감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완전으로 늘 계신이들—초우주 대구역들에 대한 통치자.

2.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들—초우주 소구역들에 대한 지도자.

3. 연합으로 늘 계신이들—지역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충고자.

4. 충심으로 늘 계신이들—별자리 정부들의 지고자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조언자.

5. 초우주 정부에서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

6. 초우주 본부에 나타나기도 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

7. 일곱 반영 영상 도움자들—일곱 반영 영들의 대변인들과 그들을 통한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대표자.

반영 영상 도움자들은 또한 초우주 정부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들에 대한 대표자들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들의 개별적 능력을 충만하게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 포용되는 것들은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초우주 개인성 현시활동, 그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들, 분별화된 궁극자 대관들, 장엄자의 이름없는 연락 반영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초(超)개인적 영 대리자들이다.

Perfectors of Wisdom, with whom are associated three billion Divine Counselors. One billion Universal Censors are attached to each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three groups are Co-ordinate Trinity Personalities, taking origin directly and divinely in the Paradise Trinity.

15.10.12 (178.12) The remaining three orders,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re glorified ascendant mortals. The first of these orders came up through the ascendant regime and passed through Havona in the days of Grandfanda. Having attained Paradise, they we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subsequently assigned to the supernal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As a class, these three orders are known as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being of dual origin but now of Trinity service. Thus was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enlarged to include the glorified and perfected children of the evolutionary worlds.

15.10.13 (178.13) The co-ordinate council of the superuniverse is composed of the seven executive groups previously named and the following sector rulers and other regional overseers:

15.10.14 (179.1) 1. Perfections of Days — the rulers of the superuniverse major sectors.

15.10.15 (179.2) 2. Recents of Days — the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 minor sectors.

15.10.16 (179.3) 3. Unions of Days — the Paradise advisers to the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15.10.17 (179.4) 4. Faithfuls of Days — the Paradise counselors to the Most High rulers of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15.10.18 (179.5) 5. Trinity Teacher Sons who may chance to be on duty at superuniverse headquarters.

15.10.19 (179.6) 6. Eternals of Days who may happen to be present at superuniverse headquarters.

15.10.20 (179.7) 7. The seven Reflective Image Aids — the spokesmen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nd through them representativ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15.10.21 (179.8) The Reflective Image Aids also function as the representatives of numerous groups of beings who are influential in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but who are not, at present, for various reasons, fully active in their individual capacities. Embraced within this group are: the evolving superuniverse personality manifesta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the unnamed liaison reflectivators of Majeston, and the superpersonal spirit representatives of the Eternal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 있는 창조된 존재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들의 대표자들을 발견하는 일은 거의 언제나 가능하다. 그 초우주들의 일상적인 사명활동 작업은 막강한 2품천사들에 의해 그리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집단에 속하는 다른 성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초우주 관리-행정, 통제, 사명활동, 그리고 집행적 판단을 수행하는 이 놀라운 중심들의 활동에 있어서, 우주 생명의 모든 구체의 지능체들은 효과적인 봉사, 현명한 관리-행정, 사랑 넘치는 보살핌, 그리고 공정한 심판에 관여한다.

초우주들은 어떤 종류의 대사 대표부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하게 각자가 서로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에 의해 유지되는 파라다이스 정보 중심을 통해서만 서로의 관련사들을 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우주적 창조의 다른 지역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 자기들 자신의 초우주의 복지를 위해서만 신성한 지혜의 협의회 안에서 활동한다. 진화하는 체험적인 최극존재의 개인성-주권의 더욱 완벽한 실제화에 의해, 그들의 조화-협동이 달성되는 그러한 시기까지, 초우주들의 그 고립은 계속될 것이다.

제 11 장. 심의회(審議會)

완전성의 독재정치와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유버사와 같은 그러한 세계들에서이다. 초(超)정부의 집행부서는 완전성의 영역들 안에서 지원된다; 입법부서는 진화적 우주들의 꽃이 피어나는 것에서 솟아나온다.

초우주의 심의회는 본부 세계로 국한된다. 이 입법 곧 자문 협의회는 일곱 회의들로 구성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초우주 협의회들에 받아들여진 모든 지역우주가 한 원주민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 대표자들은 하보나로 이동하도록 공인된, 유버사에 머물고 있는, 오르본톤의 상승하는-순례자 졸업생들 가운데로부터 그러한 지역우주들의 높은 협의회들에 의해 선택된다. 평균 봉사기간은 초우주 표준시간으로 약 100년이다.

나는 오르본톤 집행자들과 유버사 회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초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초(超)정부의 집행부서가 수행하기를 망설일 만하였던 어떤 충고도 내보낸 적이 전혀 없다. 가장 완전한 조화와 실용적 동의가 항상 지배해 왔는데, 모든 것은 진화적 존재들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기원과 신성한 본성의 개인성들과 어울리도록 자격을 갖추게 한 완전한 지혜의 정점을 실제

Son.

15:10.22 (179.9) At almost all times it is possible to find representatives of all groups of created beings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he routine ministering work of the superuniverses is performed by the mighty seconaphim and by other members of the vast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work of these marvelous centers of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control, ministry, and executive judgment, the intelligences of every sphere of universal life are mingled in effective service, wise administration, loving ministry, and just judgment.

15:10.23 (179.10) The superuniverses do not maintain any sort of ambassadorial representation; they are completely isolated from each other. They know of mutual affairs only through the Paradise clearinghouse maintain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ir rulers work in the councils of divine wisdom for the welfare of their own superuniverses regardless of what may be transpiring in other sections of the universal creation. This isolation of the superuniverses will persist until such time as their co-ordination is achieved by the more complete factualization of the personality-sovereignty of the evolving experiential Supreme Being.

11. THE DELIBERATIVE ASSEMBLY

15:11.1 (179.11) It is on such worlds as Uversa that the beings representative of the autocracy of perfection and the democracy of evolution meet face to face.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upergovernment originates in the realms of perfection; the legislative branch springs from the flowering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15:11.2 (179.12) The deliberative assembly of the superuniverse is confined to the headquarters world. This legislative or advisory council consists of seven houses, to each of which every local universe admitted to the superuniverse councils elects a native representative. These representatives are chosen by the high councils of such local universes from among the ascending-pilgrim graduates of Orvonton who are tarrying on Uversa, accredited for transport to Havona. The average term of service is about one hundred years of superuniverse standard time.

15:11.3 (180.1) Never have I known of a disagreement between the Orvonton executives and the Uversa assembly. Never yet, in the history of our superuniverse, has the deliberative body ever passed a recommendation that the executive division of the supergovernment has even hesitated to carry out. There always has prevailed the most perfect harmony and working agreement, all of which testifies to the fact that evolutionary

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초우주 본부에서의 심의회들의 현존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의 광대한 진화적 개념 전체의 지혜를 계시하며, 그것의 궁극적 승리를 예시한다.

beings can really attain the heights of perfected wisdom which qualifies them to consort with the personalities of perfect origin and divine nature. The presence of the deliberative assemblies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reveals the wisdom, and foreshadows the ultimate triumph, of the whole vast evolutionary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Eternal Son.

제 12 장. 최극 재판소

우리가 유버사 정부의 집행과 심의 부서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일정한 형태의 유란시아 시민 정부의 유사성에서 비추어서, 우리가 세 번째, 사법부를 틀림없이 가졌다고 추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별도의 인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법정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사례의 본성과 중력에 맞추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 지혜의 완전자, 또는 신성한 조언자가 주관한다. 검열자들에 의해 개별존재, 행정,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풀이된다. 시간의 자녀들과 진화적 행성들에 대한 변론은 막강한 메신저들, 지역 우주와 지역체계들에 대한 초우주 정부의 공식 관찰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보다 높은 정부의 입장은 높은 권한자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그 판결은 통상적으로, 이름-번호 없는 자들과 심의회로부터 선택된 일단(一團)의 납득하고 있는 개인성들로 동일하게 구성된,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은 모든 구성요소 우주들에 대한 영적 판결을 위한 고등 제삼제 판소들이다. 지역우주들의 주권자 아들들은 그들의 자신의 권역 안에서 최극이다; 그들은 의지적 창조체들의 소멸을 포함하는 문제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한 조언 또는 판결을 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에서만 그 초(超)정부에 종속된다. 판결의 명령들은 그 지역우주 안에서 기원되지만, 의지적 창조체들의 소멸을 포함하는 선고는 항상 초우주 정부의 본부에서 작성되고 거기로부터 집행된다. 지역 우주들의 아들들이 필사 사람의 생존을 선포할 수 있지만,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이만이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집행적 판단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심리,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의 경우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 판결들은 항상 만장일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의 협의회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최극 그리고 최상급 법정들의 선포에는 불일치도 없고 사소한 의견도 없다.

12. THE SUPREME TRIBUNALS

15:12.1 (180.2) When we speak of executive and deliberative branches of the Uversa government, you may, from the analogy of certain forms of Urantian civil government, reason that we must have a third or judicial branch, and we do; but it does not have a separate personnel. Our courts are constituted as follows: There preside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case, an Ancient of Days, a Perfector of Wisdom, or a Divine Counselor. The evidence for or against an individual, a planet, system, constellation, or universe is presented and interpreted by the Censors. The defense of the children of time and the evolutionary planets is offered by the Mighty Messengers, the official observer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to the local universes and systems. The attitude of the higher government is portrayed by Those High in Authority. And ordinarily the verdict is formulated by a varying-sized commission consisting equally of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nd a group of understanding personalities chosen from the deliberative assembly.

15:12.2 (180.3)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high review tribunals for the spiritual adjudication of all component universes. The Sovereign Sons of the local universes are supreme in their own domains; they are subject to the supergovernment only in so far as they voluntarily submit matters for counsel or adjudication by the Ancients of Days except in matters involving the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Mandates of judgment originate in the local universes, but sentences involving the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are always formulated on, and execut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The Sons of the local universes can decree the survival of mortal man, but only the Ancients of Days may sit in executive judgment on the issues of eternal life and death.

15:12.3 (180.4) In all matters not requiring trial, the submission of evidence, the Ancients of Days or their associates render decisions, and these rulings are always unanimous. We are here dealing with the councils of perfection. There are no disagreements nor minority opinions in the decrees of these supreme and superlative tribunals.

거의 예외 없이 초(超)정부들은 그들 각각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존재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초(超)우주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는 발생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관련된 초우주의 운명을 파라다이스로부터 주관하는 그 주(主) 영의 동시에 작용하는 의견들을 그들이 대표하기 때문이다.

제 13 장. 구역 정부

대구역은 한 초우주의 약 10분의 1을 이루고 100개의 소구역들, 10,000개의 지역우주들, 약 1 천억 개의 거주가능 세계들로 구성된다. 이 대구역들은 3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 최극삼위일체 개인성들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완전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은 그들이 영역에 대한 영적(靈的) 판결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이 대구역 정부들의 업무는 멀리-퍼지는 창조의 지적 지위에 주로 관여한다. 대구역들은, 영역들의 영적 관리-행정에, 또는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필사자-상승 계획 수행에 즉각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상적이고도 관리-행정적 본성의 모든 초우주 중요성인 문제들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보고하기 위하여 유보하고 판결하며 시행하고 요약한다. 대구역 정부의 성원은 초우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유버사의 장엄한 위성들이 하보나를 향한 너희의 최종적인 영적 준비에 관여하는 것처럼, 제5 유-대서울의 70개 위성들도 너희 초우주 지적훈련과 발달에 기여한다. 전체 오르본톤으로부터, 시간의 필사자들로 하여금 영원의 생애를 향하여 그들이 더욱 진보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현명한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이 훈련의 대부분은 70개 연구 세계들에서 수행(遂行)된다.

소구역 정부들은 3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주관된다. 그들의 관리-행정은 주로 물리적 통제, 통일, 안정, 그리고 구성요소 지역우주들 관리-행정의 일상적 조화-협동에 주로 관련된다. 각각의 소구역에는 100개의 지역우주들, 1만 개의 별자리들, 1백만 개의 체계들, 곧 약 10억 개의 거주가능 세계들을 포용한다.

소구역 본부 세계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거대한 집합장소들이다. 이 본부 세계들은 7개의 교육 구체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그 초우주로 들어가는 학교들을 구성하며 우주들의

15:12.4 (180.5) With certain few exceptions the supergovernments exercise jurisdiction over all things and all beings in their respective domains. There is no appeal from the rulings and decisions of the superuniverse authorities since they represent the concurred opinion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at Master Spirit who, from Paradise, presides over the destiny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13. THE SECTOR GOVERNMENTS

15:13.1 (181.1) A major sector comprises about one tenth of a superuniverse and consists of one hundred minor sectors, ten thousand local universes, about one hundred billion inhabitable worlds. These major sectors are administered by three Perfections of Days,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15:13.2 (181.2) The courts of the Perfections of Days are constituted much as are those of the Ancients of Days except that they do not sit in spiritual judgment upon the realms. The work of these major sector governments has chiefly to do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of a far-flung creation. The major sectors detain, adjudicate, dispense, and tabulate, for reporting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ll matters of superuniverse importance of a routine and administrative nature which are not immediately concerned with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realms or with the outworking of the mortal-ascension plans of the Paradise Rulers. The personnel of a major sector government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superuniverse.

15:13.3 (181.3) As the magnificent satellites of Uversa are concerned with your final spiritual preparation for Havona, so are the seventy satellites of Umajor the fifth devoted to your superuniverse intellectual training and development. From all Orvonton, here are gathered together the wise beings who labor untiringly to prepare the mortals of time for their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career of eternity. Most of this training of ascending mortals is conducted on the seventy study worlds.

15:13.4 (181.4) The minor sector governments are presided over by three Recents of Days. Their administration is concerned mainly with the physical control, unification, stabilization, and routine co-ordin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ponent local universes. Each minor sector embraces as many as one hundred local universes, ten thousand constellations, one million systems, or about one billion inhabitable worlds.

15:13.5 (181.5) Minor sector headquarters worlds are the grand rendezvou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surrounded by the seven instruction spheres

우주에 관한 물리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식을 위한 훈련 중심지들이다.

소구역 정부의 행정-관리자들은 대구역 통치자들의 직속 관할 아래에 있다.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관찰된 모든 보고들을 받아들이며 그 지역 우주들의 본부 구체 위에 삼위일체 관찰자들 그리고 충고자들로서 머물고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그리고 그 별자리들의 본부에 있는 지고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들에 비슷하게 배정된 충심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초우주로 올라온 모든 추천들을 조화-협동한다. 그러한 모든 보고서들은 대구역에 있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에게 보내지고, 그 후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체제는 그 지역우주들의 별자리들로부터 초우주의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지역체계 본부들에는 삼위일체 대표들이 없다.

제 14 장. 일곱 초우주의 목적

일곱 초우주의 진화 안에 펼쳐지고 있는 일곱 가지 주요 목적들이 있다. 초우주 진화에서 각 주요 목적은 일곱 초우주들 중 각 하나에서만 오직 가장 충만한 표현을 이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초우주 각각은 특별한 기능과 독특한 본성을 갖는다.

너희 지역우주가 소속된,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르본톤은,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 대한 거대하고도 풍부한 자비로운 사명활동의 그 증여 때문에, 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영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한편, 자비로 부드러워진 공의가 지배하고 인내로 조절된 힘이 통치하는 방법으로 유명하다, 오르본톤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주 증명이다.

아무튼, 오르본톤 안에 펼쳐지는 진화 목적의 참된 본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넉넉히 나타낼 수도 있다. 그것은 이 초(超)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연관된 여섯 초(超)창조 안에 현시된 조화우주 진화의 독특한 여섯 목적들이 하나의-전체-의미로 여기에서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진화되고 완결된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구현이 먼 훗날에 그리고 유버사로부터, 그때 달성된 그의 전능한 주권적 힘의 모든 체형적 장엄함 안에서, 완전해진 일곱 초우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추측해왔다는 이유에서이다.

which constitute the entrance schools of the superuniverse and are the centers of training for physical and administrative knowledge concern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3.6 (181.6) The administrators of the minor sector governments are under the immediate jurisdiction of the major sector rulers. The Recents of Days receive all reports of observations and co-ordinate all recommendations which come up to a superuniverse from the Unions of Days who are stationed as Trinity observers and advisers on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s and from the Faithfuls of Days who are similarly attached to the councils of the Most Highs at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All such reports are transmitted to the Perfections of Days on the major sectors, subsequently to be passed on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Thus the Trinity regime extends from the constellations of the local universes up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do not have Trinity representatives.

14. PURPOS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5:14.1 (181.7) There are seven major purposes which are being unfolded in the evolu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major purpose in superuniverse evolution will find fullest expression in only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refore does each superuniverse have a special function and a unique nature.

15:14.2 (182.1) Orvonton,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one to which your local universe belongs, is known chiefly because of its tremendous and lavish bestowal of merciful ministry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It is renowned for the manner in which justice prevails as tempered by mercy and power rules as conditioned by patience, while the sacrifices of time are freely made to secure the stabilization of eternity. Orvonton is a universe demonstration of love and mercy.

15:14.3 (182.2) It is, however, very difficult to describe our conception of the true nature of the evolutionary purpose which is unfolding in Orvonton, but it may be suggested by saying that in this supercreation we feel that the six unique purposes of cosmic evolution as manifested in the six associated supercreations are here being interassociated into a meaning-of-the-whole; and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have sometimes conjectured that the evolved and finished personalization of God the Supreme will in the remote future and from Uversa rule the perfected seven superuniverses in all the experiential majesty of his then attained almighty sovereign power.

오르본톤이 본성에서 독특하고 운명에서 개별적인 것처럼, 그것과 연관된 여섯 개의 초우주들 각각 역시 그러하다. 그렇지만 오르본톤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르본톤 삶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이들 특징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른 어떤 초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을 찾도록 되어 있다. 초우주 진화의 일곱 가지 목적들은 모든 초우주들에 두루 작용하지만, 각각의 초(超)창조는 이 목적들 중 오직 하나에 대하여 가장 충만한 표현을 나타낼 것이다. 이 초우주 목적들에 대해 보다 더 납득하기 위하여,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계시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 때가 되더라도 너희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체 소개는 너희 세계와 지역체계가 일부분을 이루는 거대한 창조를 잠깐 훑듯 스쳐본 것에 불과하다.

너희 세계는 유란시아라고 불리며, 사타니아의 행성 집단 곧 체계에서 606번째이다. 이 체계는 현재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갖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추가 행성들이 언젠가 미래시기에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되기 위하여 순조롭게 진화되고 있다.

사타니아에는 예루셈이라 불리는 본부 세계가 있고, 이것은 놀라시아텍 별자리에서 체계 번호 24번이다. 너희 별자리 놀라시아텍은 100개의 지역체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에텐시아라 불리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놀라시아텍은 네바돈 우주에서 70번째이다. 네바돈 지역우주는 100개의 별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원자별이라고 알려진 수도를 갖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엔사 소구역에서 84번째이다.

엔사 소구역은 100개의 지역우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3 유-소서울이라 불리는 수도를 갖고 있다. 이 소구역은 스프랜돈이라는 대구역에서 3번째이다. 스프랜돈은 100개의 소구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5 유-대서울이라 불리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분할인 오르본톤 초우주의 다섯 번째 대구역이다. 너희는 우주들의 우주의 조직과 관리-행정의 기획에서 너희 행성의 위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

너희 세계 유란시아의 대우주 번호는 5,342,482,337,666 번이다. 그것은 유버사와 파라다이스에 등록된 번호,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대한 목록에서의 너희 번호이다. 나는 물리적-구체 등록번호를 알지만, 그것은 그러한 비범한 크기는 필사자 마음에게 실천적인 의의(意義)가 거의 없다.

너희 행성은 거대한 조화우주의 일원이다; 너희는 거의 무한한 가족 세계들에 속하지만, 그러나 너희 구체는 모든 실존에서 마치 유일하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인 것처럼 정확하게 관리-운영되고 사랑스럽게 양육되고 있다.

15:14.4 (182.3) As Orvonton is unique in nature and individual in destiny, so also is each of its six associated superuniverses. A great deal that is going on in Orvonton is not, however, revealed to you, and of these unrevealed features of Orvonton life, many are to find most complete expression in some other superuniverse. The seven purposes of superuniverse evolution are operative throughout all seven superuniverses, but each supercreation will give fullest expression to only one of these purpose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se superuniverse purposes, much that you do not understand would have to be revealed, and even then you would comprehend but little. This entire narrative presents only a fleeting glimpse of the immense creation of which your world and local system are a part.

15:14.5 (182.4) Your world is called Urantia, and it is number 606 in the planetary group, or system, of Satania. This system has at present 619 inhabited worlds, and more than two hundred additional planets are evolving favorably toward becoming inhabited worlds at some future time.

15:14.6 (182.5) Satania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Jerusem, and it is system number twenty-four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Your constellation, Norlatiadek, consists of one hundred local systems and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Edentia. Norlatiadek is number seventy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consists of one hundred constellations and has a capital known as Salvington. The universe of Nebadon is number eighty-four in the minor sector of Ensa.

15:14.7 (182.6) The minor sector of Ensa consists of one hundred local universes and has a capital called Uminor the third. This minor sector is number three in the major sector of Splanon. Splanon consists of one hundred minor sectors and has a headquarters world called Umajor the fifth. It is the fifth maj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Thus you can locate your planet in the scheme of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5:14.8 (182.7) The grand universe number of your world, Urantia, is 5,342,482,337,666. That is the registry number on Uversa and on Paradise, your number in the catalogue of the inhabited worlds. I know the physical-sphere registry number, but it is of such an extraordinary size that it is of little practical significance to the mortal mind.

15:14.9 (183.1) Your planet is a member of an enormous cosmos; you belong to a well-nigh infinite family of worlds, but your sphere is just as precisely administered and just as lovingly fostered as if it were the only inhabited world in all existence.

[유버사에서 흘러져 나온 우주 검열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15:14.10 (183.2) [Presented by a Universal Censor
hailing from Uversa.]

제 16 편 일곱 주(主) 영

⇨ 015

유랜시아 책

017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6 편 일곱 주(主) 영

색션

소개

- 제 1 장. 삼원적(三元的) 신(神)에 대한 관계
- 제 2 장.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 제 3 장. 주(主) 영들의 정체성과 다양성
- 제 4 장. 주(主) 영들의 속성들과 기능들
- 제 5 장. 창조체들에 대한 관계
- 제 6 장. 조화우주 마음
- 제 7 장. 도덕, 덕목, 그리고 개인성
- 제 8 장. 유랜시아 개인성
- 제 9 장. 인간 의식의 실제

소개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은 무한 영의 1차 개인성들이다. 이 칠중 창조적 자아-복제(複製) 활동 안에서, 무한한 영은 신(神)의 세 개인들의 사실적 실존 안에 수리(數理)상으로 선천적인, 연관하는 가능성을 소진하였다. 더 큰 숫자의 주(主) 영들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그들은 창조되었을 것이지만, 단지 일곱 연관적 가능성들만이 있고, 그래서 세 신(神)들 안에 선천적인, 오직 일곱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왜 광범위한 일곱 부분들로 운영되는지를, 그리고 왜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 조직과 관리-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있는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일곱 주(主) 영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닮음에서, 그들의 기원을, 그로부터 유래된 그들의 개별적 특징들을 가진다:

1. 우주 아버지.

PAPER 16

THE SEVEN MASTER SPIRITS

SECTIONS

Introduction

1. Relation to Triune Deity
2. Relation to the Infinite Spirit
3.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Master Spirits
4.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aster Spirits
5. Relation to Creatures
6. The Cosmic Mind
7. Morals, Virtue, and Personality
8. Urantia Personality
9. Reality of Human Consciousness

INTRODUCTION

16:0.1 (184.1)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are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n this sevenfold creative act of self-duplication the Infinite Spirit exhausted the associative possibilities mathematically inherent in the factual existence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Had it been possible to produce a larger number of Master Spirits, they would have been created, but there are just seven associative possibilities, and only seven, inherent in three Deities. And this explains why the universe is operated in seven grand divisions, and why the number seven is basically fundamental in its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6:0.2 (184.2) The Seven Master Spirits thus have their origin in, and derive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the following seven likenesses:

- 16:0.3 (184.3) 1. The Universal Father.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4. 아버지와 아들.

5. 아버지와 영.

6. 아들과 영.

7.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

우리는 주(主) 영들의 창조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거의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무한한 영의 직접적 활동에 의해 실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기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하게 배워 왔다.

영 성격과 본성에서, 파라다이스의 이들 일곱 영들은 하나처럼 있지만, 다른 모든 정체성의 측면들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다르며, 초우주들 안에서의 그들 기능의 결과들은 각자의 개별 차이점들이 뚜렷이 식별될 정도이다. 대우주의 일곱 부분들의 차후계획들은 —그리고 외부 공간의 상관되는 구획들까지도— 최극이며 궁극 감독의 이들 일곱 주(主) 영들의 영적-이외의 다양성에 의해 조건을 갖추어왔다.

주(主) 영들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그들의 당면한 권역은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중앙 감독이다. 각각의 주(主) 영은 거대한 기세-초점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를 서서히 돌고 있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감독하는 초우주 맞은편에서, 그리고 특유한 힘을 통제하고 분할 에너지를 분배하는 파라다이스 초점에, 장소를 유지한다. 어떤 초우주의 방사 경계선도 감독하는 주(主) 영의 파라다이스 본부에서 실제적으로 모아진다.

16:0.4 (184.4) 2. The Eternal Son.

16:0.5 (184.5) 3. The Infinite Spirit.

16:0.6 (184.6) 4. The Father and the Son.

16:0.7 (184.7) 5. The Father and the Spirit.

16:0.8 (184.8) 6. The Son and the Spirit.

16:0.9 (184.9) 7. The Father, Son, and Spirit.

16:0.10 (184.10)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ac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creation of the Master Spirits. Apparently they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personal acts of the Infinite Spirit, but we have been definitely instructed that both the Father and the Son participated in their origin.

16:0.11 (184.11) In spirit character and nature these Seven Spirits of Paradise are as one, but in all other aspects of identity they are very unlike, and the results of their functioning in the superuniverses are such that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each are unmistakably discernible. All the afterplans of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 and even the correlative segments of outer space — have been conditioned by the other-than-spiritual diversity of these Seven Master Spirits of supreme and ultimate supervision.

16:0.12 (184.12) The Master Spirits have many functions, but at the present time their particular domain is the central supervis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Master Spirit maintains an enormous force-focal headquarters, which slowly circulates around the periphery of Paradise, always maintaining a position opposite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and at the Paradise focal point of its specialized power control and segmental energy distribution. The radial boundary lines of any one of the superuniverses do actually converge at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제 1 장. 삼원적(三元的) 신(神)에 대한 관계

공동 창조자, 무한한 영은 미(未)분화 신(神)의 삼원적 개인성구현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삼중 신(神) 개인성구현은 개별적 그리고 연관적 표현의 가능성에서 선천적으로 칠중(七重)이다; 따라서 지능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적 존재들에 의해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을 창조하려는 그 이후의 계획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표현이고, 일곱 주(主) 영들의 개인성구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神)의 삼중(三重) 개인성구현을 절대 필연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반면, 일곱 주(主) 영들의 출현을 하위절대 필연성으로 보게 되었다.

1. RELATION TO TRIUNE DEITY

16:1.1 (185.1) The Conjoint Creator, the Infinite Spirit, is necessary to the completion of the triune personalization of undivided Deity. This threefold Deity personalization is inherently sevenfold in possibility of individual and associative expression; hence the subsequent plan to create universes inhabited by intelligent and potentially spiritual beings, duly expressiv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made the personaliz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escapable. We have come to speak of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as the *absolute inevitability*, while we have come to look upon the appeara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 the *subabsolute inevitability*.

일곱 주(主) 영들이 삼중(三重) 신(神)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들은 칠중(七重) 신(神)에 대한 영원한 묘사, 신(神)의 항상-실존하는 세 개인들의 활동적이고 연관을 이루는 기능들이다. 이 일곱 영들에 의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이나, 또는 어떤 이원적(二元的) 관계적-연합이든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은 제7번 주(主) 영을 통해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삼위일체로서는 아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주(主) 영들은 어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단독이며 저마다의 그러나 집단적이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닌, 신(神) 기능을 대표한다. 제7번 주(主)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최극존재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의 개인적 힘과 초우주 권한의 개별적 보좌를 비우고 파라다이스 신(神)의 삼원적 현존으로의 공동 행위자 주변에 모이면, 그 때 거기에서 그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그리고 우주들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神)-삼위일체-의 기능적 힘, 지혜와 권한을 집단적으로 대표한다. 신(神)의 시원(始原)적 칠중 표현에 대한 그러한 파라다이스 연합은, 최극위 안에서 그리고 궁극위 안에서 세 영원 신(神)들의 각 속성 그리고 태도 전체를 실제적으로 포용하고, 글자 그대로 둘러싼다. 일곱 주(主) 영들은 모든 실천적 의향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그 때 그리고 거기에서, 주(主)우주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극자-궁극자의 기능적 권역을 둘러싼다.

우리가 식별하는 한, 이들 일곱 영은 신(神)의 영원한 세 개인들의 신성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자의 영원한 세 위상들의 기능하는 현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연관되었을 때 주(主) 영들은, 대체로 행동의 유한한 권역으로 생각해도 좋은 범위 안에서의 파라다이스 신(神)들을 대변한다. 그것은 궁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 아닌, 많은 것을 포용한다.

제 2 장.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계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신성한 아들들의 개인들을 통하여 영원한 기원 아들이 계시되는 것과 똑같이, 무한한 영 그리고 신성한 영은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된 영 집단들의 경로들을 통해 계시된다. 중심들의 중심에서 무한한 영은 접근될 수 있지만,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모든 존재들이 그의 개인성 그리고 차별된 현존을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우주에 도달한 모든 존재들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 새롭게 도착한 공간 순례자들이 흠어져 나온 그 초우주를 주관하는 존재와 즉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16:1.2 (185.2) While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hardly expressive of *threefold* Deity, they are the eternal portrayal of *sevenfold* Deity, the active and associative functions of the three ever-existent persons of Deity. By and in and through these Seven Spirits,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or the Infinite Spirit, or any dual association, is able to function as such. When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ct together, they can and do function through Master Spirit Number Seven, but not as the Trinity. The Master Spirits singly and collectively represent any and all possible Deity functions, single and several, but not collective, not the Trinity. Master Spirit Number Seven is personally nonfunctional with regard to the Paradise Trinity, and that is just why he can function *personally* for the Supreme Being.

16:1.3 (185.3) But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vacate their individual seats of personal power and superuniverse authority and assemble about the Conjoint Actor in the triune presence of Paradise Deity, then and there are they collectively representative of the functional power, wisdom, and authority of undivided Deity — the Trinity — to and in the evolving universes. Such a Paradise union of the primal sevenfold expression of Deity does actually embrace, literally encompass, all of every attribute and attitude of the three eternal Deities in Supremacy and in Ultimacy.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the Seven Master Spirits do, then and there, encompass the functional domain of the Supreme-Ultimate to and in the master universe.

16:1.4 (185.4) As far as we can discern, these Seven Spirits are associated with the divine activities of the three eternal persons of Deity; we detect no evidence of direct association with the functioning presences of the three eternal phases of the Absolute. When associated, the Master Spirits represent the Paradise Deities in what may be roughly conceived as the finite domain of action. It might embrace much that is ultimate but *not* absolute.

2. RELATION TO THE INFINITE SPIRIT

16:2.1 (185.5) Just as the Eternal and Original Son is revealed through the persons of th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divine Sons, so is the Infinite and Divine Spirit revealed through the channe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ir associated spirit groups. At the center of centers the Infinite Spirit is approachable, but not all who attain Paradise are immediately able to discern his personality and differentiated presence; but all who attain the central universe can and do immediately commune wit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one presiding over the superuniverse from which the newly arrived space pilgrim hails.

우주들의 우주에 대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할 수 있는 반면, 그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밖에서는 무한한 영은 오직 일곱 주(主) 영의 음성들로만 말씀한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한계 안에서 개인적 현존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른 곳에서는 그의 개인적 영 현존이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또는 어떤 개별존재에 있어서든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초우주 영 현존은, 그 창조 부분의 감독하는 주(主) 영의 독특한 본성에 의해 조건을 갖춘다. 역으로 말해서, 영 기체와 지능의 병합된 계통들은 일곱 주(主) 영들의 길을 따라 신(神)의 셋째 개인을 향해 안으로 지나간다.

일곱 주(主) 영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최극-궁극자 속성들을 집단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된다. 각자가 이 자질을 개별적으로 갖는 반면, 그들은 오직 집단적으로만 전능, 전지, 그리고 전재(全在)의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우주적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극위와 궁극위의 이들 힘을 발휘함에서 각자는 즉각적 감독의 초우주에 개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동 행위자의 신성과 개인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것은 일곱 주(主) 영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적용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자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본성들로 대우주의 일곱 분할들에 무한한 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영의 어떤 또는 모든 이름들은 집합적인 일곱으로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집합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하위-절대 차원들에서 공동 행위자와 하나이다.

제 3 장. 주(主) 영들의 정체성과 다양성

일곱 주(主) 영들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개인적이다. 그들은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호에 의해 그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한한 영의 1차 개인성구현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동족이지만, 삼원적 신(神)의 일곱 가지 가능한 관계적-연합들에 대한 1차 표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본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본성에서의 이 다양성은 초우주 행위성에 관한 그들의 차이점을 결정한다. 이 일곱 주(主) 영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번 주(主) 영. 특별한 의미에서, 이 영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인 대표자이다. 그는 우주

16:2.2 (186.1)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Paradise Father speaks only through his Son, while he and the Son conjointly act only through the Infinite Spirit.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the Infinite Spirit *speaks* only by the voic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3 (186.2) The Infinite Spirit exerts an influence of *personal presence* within the confine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elsewhere his personal spirit presence is exerted by and throug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refore is the superuniverse spirit presenc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any world or in any individual conditioned by the unique nature of the supervisory Master Spirit of that segment of creation. Conversely, the combined lines of spirit force and intelligence pass inward to the Third Person of Deity by wa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4 (186.3)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collectively endowed with the supreme-ultimate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ile each one individually partakes of this endowment, only collectively do they disclose the attributes of omnipotence,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No one of them can so function universally; as individuals and in the exercise of these powers of supremacy and ultimacy each is personally limited to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16:2.5 (186.4) All of everything which has been told you concerning the divinity and personality of the Conjoint Actor applies equally and fully to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so effectively distribute the Infinite Spirit to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their divine endowment and in the manner of their differing and individually unique natures. It would therefore be proper to apply to the collective group of seven any or all of the names of the Infinite Spirit. Collectively they are one with the Conjoint Creator on all subabsolute levels.

3.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MASTER SPIRITS

16:3.1 (186.5)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describable beings, but they are distinctly and definitely personal. They have names, but we elect to introduce them by number. As primary personalization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akin, but as primary expressions of the seven possible associations of triune Deity, they are essentially diverse in nature, and this diversity of nature determines their differential of superuniverse conduct. These Seven Master Spirit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16:3.2 (186.6) *Master Spirit Number One.* In a special manner this Spirit is the direct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지혜에 대한 독특하고도 효과적인 현시활동이다. 그는,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의 대학을 관장하는 존재인, 신비 감시자들의 우두머리에게 가까운 연관-동료이고 훌륭한 충고자이다. 일곱 주(主) 영들의 모든 관계적-연합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은 언제나 1번 주(主) 영이다.

이 영은 첫 번째 초우주를 지배하며, 동시에 무한한 영의 1차 개인성구현의 신성한 본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성격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첫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2번 주(主) 영. 이 영은 영원한 아들, 모든 창조 중 첫-태생의 비길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격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우연히 거주 우주에서 개별존재들로서 있게 되거나 기쁨이 넘치는 비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경우든지 그는 그들의 모든 계층들과 항상 긴밀하게 관계적-연합한다. 일곱 주(主) 영들의 모든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그는 항상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고 대신한다.

이 영은 2번 초우주의 운명들을 지도하고 영원한 아들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광대한 권역을 통치한다. 그는 두 번째 초우주의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3번 주(主) 영. 이 영(靈) 개인성은 무한한 영을 특별하게 닮았으며, 그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 중 대부분의 움직임들과 활동들을 지도한다. 그는 그들의 모임들을 주재하고,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배타적으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과 긴밀하게 연관한다. 일곱 주(主) 영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무한한 영을 항상 대변하는 것은 3번 주(主) 영이다.

이 영은 3번 초우주를 책임지며, 그는 무한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생긴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한다. 그는 세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4번 주(主) 영.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主) 영은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에서 아버지-아들 정책과 과정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이다. 이 영은 무한한 영에 이미 도달한 그리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그 상승하는 존재들에 대한 우두머리 지도자 그리고 충고자이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기원되는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을 돌본다. 일곱 주(主) 영들의 관계적-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대표할 필요가 있게 될 때, 대변

representation of the Paradise Father. He is a peculiar and efficient manifestation of the power, love, and wisdom of the Universal Father. He is the close associate and supernal adviser of the chief of Mystery Monitors, that being who presides over the College of Personalized Adjusters on Divinington. In all associ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One who speaks for the Universal Father.

16:3.3 (186.7) This Spirit presides over the first superuniverse and, while unfailingly exhibiting the divine nature of a primary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eems more especially to resemble the Universal Father in character.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rst superuniverse.

16:3.4 (187.1) *Master Spirit Number Two.* This Spirit adequately portrays the matchless nature and charming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He is always in close association with all orders of the Sons of God whenever they may happen to be in the residential universe as individuals or in joyous conclave. In all the assembli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e always speaks for, and in behalf of, the Eternal Son.

16:3.5 (187.2) This Spirit directs the destinies of superuniverse number two and rules this vast domain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situated at the capital of the second superuniverse.

16:3.6 (187.3) *Master Spirit Number Three.* This Spirit personality especially resembles the Infinite Spirit, and he directs the movements and work of many of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He presides over their assemblies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all personalities who take exclusive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council, it is Master Spirit Number Three who always speaks for the Infinite Spirit.

16:3.7 (187.4) This Spirit is in charge of superuniverse number three, and he administers the affairs of this segment much as woul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third superuniverse.

16:3.8 (187.5) *Master Spirit Number Four.* Partaking of the combined nature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is Master Spirit is the determining influence regarding Father-S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is Spirit is the chief director and adviser of those ascendant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Infinite Spirit and thus have become candidates for seeing the Son and the Father. He fosters that enormous group of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하는 이는 항상 4번 주(主) 영이다.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속성들의, 그의 독특한 관계적-연합에 따라서 대우주의 네 번째 부분을 돌본다. 그는 네 번째 초우주의 본부의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5번 주(主) 영.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성격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이 신성한 개인성은 힘 지도자들로,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로 알려진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에 대한 충고자이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공동 행위자 안에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을 돌본다.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들에서, 아버지-영 태도에 질문이 있으면, 5번 주(主) 영이 항상 대변한다.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병합된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러한 방법으로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복지를 지도한다. 그는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6번 주(主) 영.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병합된 성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과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창조체들이 중앙우주에서 만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주(主) 영이 그들의 충고자이다; 일곱 주(主) 영들의 회의에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을 대신하여 공동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6번 주(主) 영이 대답한다.

이 영은 마치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초우주의 생김 관련사들을 지도한다. 그는 여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7번 주(主) 영. 일곱 번째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독특하게 동등한 초상이다. 모든 삼원(三元)-기원 존재들을 돌보는 충고자인, 일곱 번째 영은 또한 모든 하보나의 상승하는 순례자들, 아버지, 아들과 영의 병합된 사명활동을 통하여 영광의 법정에 도달한 저들 낮은 존재들의 지도자이며 충고자이기도 하다.

일곱 번째 주(主) 영이 조직 면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세 무한 개인들의, 그들의 신(神) 연합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기능이 최극자 하느님의 개

the Father and the Son.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represent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associ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our who speaks.

16:3.9 (187.6) This Spirit fosters the four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his peculiar association of the attribut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headquarters of the fourth superuniverse.

16:3.10 (187.7) *Master Spirit Number Five.* This divine personality who exquisitely blends th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adviser of that enormous group of beings known as the power directors,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This Spirit also fosters all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the Father and the Conjoint Acto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hen the Father-Spirit attitude is in question,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ive who speaks.

16:3.11 (187.8) This Spirit directs the welfare of the fifth superuniverse in such a way as to suggest the combined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fth superuniverse.

16:3.12 (187.9) *Master Spirit Number Six.* This divine being seems to portray the combined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Whenever the creatures jointly created by the Son and the Spirit forgather in the central universe, it is this Master Spirit who is their adviser; and wheneve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becomes necessary to speak conjointly fo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it is Master Spirit Number Six who responds.

16:3.13 (188.1) This Spirit directs the affai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16:3.14 (188.2) *Master Spirit Number Seven.* The presiding Spiri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is a uniquely equal portray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Seventh Spirit, the fostering adviser of all triune-origin beings, is also the adviser and director of all the ascending pilgrims of Havona, those lowly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courts of glory through the combined ministry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16:3.15 (188.3) The Seventh Master Spirit is not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t is a known fact that his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is the Conjoint Actor's portraiture in equal proportions of the three infinite persons whose

인적이며 영적 본성의 근원인, 동등한 비율에서의 공동 행위자의 초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곱 번째 주(主) 영은 진화하는 최극자의 영 개인과의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주(主) 영 회의에서, 아버지, 아들, 영의 병합된 개인적 태도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거나, 또는 최극존재의 영적 태도를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기능하는 분이 7번 주(主) 영이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그는 일곱 주(主) 영의 파라다이스 협의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일곱 주(主) 영들 중 어느 누구도 조직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칠중 신(神)으로 연합할 때에는, 신(神) 각각—개인적 감각이 아닌—에서 이 연합은, 삼위일체 기능과 연관할 수 있는 기능차원과 동등하다. 이러한 감각에서 “칠중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관할 수 있다. 7번 주(主) 영이 때때로 삼위일체 태도들의 확인으로 말하거나, 혹은 오히려 삼중-신(神)-연합의 태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태도에 관한 칠중-영(靈)-연합의 태도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일곱 번째 주(主) 영의 다양한 기능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적 본성들에 대한 병합된 묘사로부터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적 태도의 대표를 거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神) 태도를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지배하는 이 영은 어떤 면에서 궁극자와 최극-궁극자의 태도들을 비슷하게 표현한다.

그의 여러 수용력에서, 나뉘지 않은 최극위신(神)의 이해를 성취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있는 시간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후보자들의 진보를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이는 바로 7번 주(主) 영이다. 그러한 이해는, 최극위 합일에 대한 창조체 파악을 이루기까지 최극존재의 성장하는 체험적 주권 개념과 것처럼 조화-협동하는, 최극위 삼위일체의 실존적 주권에 대한 파악을 포함한다. 이들 세 요소의 창조체 실현은 삼위일체 실체의 하보나 이해와 동등하며 그리고 시간의 순례자에게, 신(神)의 세 무한(無限) 개인들을 발견하려고 결국에는 삼위일체에 스며드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한다.

하보나 순례자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충분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일곱 번째 주(主) 영, 그의 삼원적 본성이 그러한 특유한 방법에서 최극자의 영 개인의 계시인, 그에 의해 보상된다. 최극자의 개인에 접촉할 수 없는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 7번 주(主) 영은 개인적 관계들에 있어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하느님을 대신하여 기능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들이, 영광의 중심에 그들이 도달할 때 분명하게 깨닫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Deity union is the Paradise Trinity, and whose function as such is the source of the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of God the Supreme. Hence the Seventh Master Spirit discloses a personal and organic relationship to the spirit person of the evolving Supreme. Therefore in the Master Spirit councils on high,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cast the ballot for the combined personal attitud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r to depict the spiritual attitude of the Supreme Being,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functions. He thus inherently becomes the presiding head of the Paradise council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3.16 (188.4) No one of the Seven Spirits is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when they unite as sevenfold Deity, this union in a deity sense — not in a personal sense — equivalates to a functional level associable with Trinity functions. In this sense the “Sevenfold Spirit” is functionally associable with the Paradise Trinity. It is also in this sense that Master Spirit Number Seven sometimes speaks in confirmation of Trinity attitudes or, rather, acts as spokesman for the attitude of the Sevenfold-Spirit-union regarding the attitude of the Threefold-Deity-union, th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16:3.17 (188.5) The multiple functions of the Seventh Master Spirit thus range from a combined portraiture of the *personal natures*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through a representation of the *personal attitude* of God the Supreme, to a disclosure of the *deity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n certain respects this presiding Spirit is similarly expressive of the *attitudes* of the Ultimate and of the Supreme-Ultimate.

16:3.18 (188.6)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in his multiple capacities, personally sponsors the progress of the ascension candidates from the worlds of time in their attempts to achieve comprehension of the undivided Deity of Supremacy. Such comprehension involves a grasp of the existential sovereignty of the Trinity of Supremacy so co-ordinated with a concept of the growing experienti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as to constitute the creature grasp of the unity of Supremacy. Creature realization of these three factors equals Havona comprehension of Trinity reality and endows the pilgrims of time with the ability eventually to penetrate the Trinity, to discover the three infinite persons of Deity.

16:3.19 (188.7) The inability of the Havona pilgrims fully to find God the Supreme is compensated by the Seventh Master Spirit, whose triune nature in such a peculiar manner is revelatory of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of the noncontactability of the person of the Supreme, Master Spirit Number Seven functions in the place of the God of ascendant creatures in the matter of personal relationships.

되는 하나의 높은 영 존재이다.

이 주(主) 영은, 창조에서 우리 자신이 속한 구역인,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사의 반 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관리-행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본성들의 조화-협동하는 혼합의 경이로운 대칭을 나타낸다.

제 4 장. 주(主) 영들의 속성들과 기능들

일곱 주(主) 영들은 진화적 우주들에 대한 무한한 영의 충만한 대표이다. 그들은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관계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대표한다. 그들이 공동 행위자의 우주 행정-관리적 통제, 조화-협동하는 우두머리들로서 기능하는 반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적 활동들에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일곱 영들이 삼원적 신(神)의 개인성구현된 물리적 힘, 조화우주 마음, 그리고 영적 현존이며, “모든 우주에 보내지는 하느님의 일곱 영들”인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주(主) 영들은 그들이 절대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모든 우주 차원들 위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우주 활동들의 모든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행정-관리적 관련자들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감독자들이다. 필사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主) 영들에 관한 매우 많은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게 전문화되어 있고, 너무나 예외적으로 물질적이며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지극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다재다능한 창조자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의 조상들이며, 그들 자신은 광대하고도 멀리-퍼지는 영-창조체 창조의 최극 지도자들이다.

일곱 주(主) 영들은, 대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의 조직, 통제, 그리고 규정에 필수 불가결한 실존개체들인 우주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연관-동료들의 창조자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주(主) 영들이 지역우주들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일에서 창조자 아들들을 매우 물질적으로 보조한다.

우리는 주(主) 영들의 조화우주-에너지 활동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세 기능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 관계도 추적할 능력이 없다. 주(主) 영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에너지 현시활동들은 모두 파라다이스의 가장자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하부 표면으로 정체성 확인되는 기세현상들과 연관된 어떤 직접적 방법인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He is the one high spirit being that all ascenders are certain to recognize and somewhat comprehend when they reach the centers of glory.

16:3.20 (189.1) This Master Spirit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our own segment of creation. His administration of Orvonton discloses the marvelous symmetry of the co-ordinate blending of the divine natures of Father, Son, and Spirit.

4.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ASTER SPIRITS

16:4.1 (189.2)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ful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y represent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the relationships of energy, mind, and spirit. While they function as the co-ordinating heads of the universal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onjoint Actor, do not forget that they have their origin in the creative acts of the Paradise Deities.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se Seven Spirits are the personalized physical power, cosmic mind, and spiritual presence of the triune Deity,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forth to all the universe.”

16:4.2 (189.3) The Master Spirits are unique in that they function on all universe levels of reality excepting the absolute. They are, therefore, efficient and perfect supervisors of all phases of administrative affairs on all levels of superuniverse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the mortal mind to understand very much about the Master Spirits because their work is so highly specialized yet all-embracing, so exceptionally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so exquisitely spiritual. These versatile creators of the cosmic mind are the ances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are, themselves, supreme directors of the vast and far-flung spirit-creature creation.

16:4.3 (189.4)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crea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entities who are indispensable to the organiz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 physical energies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se same Master Spirits very materially assist the Creator Sons in the work of shaping and organizing the local universes.

16:4.4 (189.5) We are unable to trace any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cosmic-energy work of the Master Spirits and the forc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energy manifest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ster Spirits are all directed from the periphery of Paradise; they do not appear to be in any direct manner associated with the force phenomena identified with the nether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다양한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기능적 활동들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主) 영들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들 중 어떤 것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통제자들과 영 사명활동자 둘 모두의 조상인 이들을 제외하고, 누가 지금까지 실존하지 않은 우주실체의 위상—모론시아 본체와 모론시아 마음—을 생기게 하려고 물질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을 병합되고 연관하는 데 그토록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영적 세계에서의 실체의 많은 것이 모론시아 계층, 유란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우주 실체의 위상에 속한다. 개인성 실존의 목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론시아 창조계가 항상 사이에 개재하며, 필사자 기원인 물질적 영역들과 전진하는 영 지위인 초우주 구체들 사이의 심연에 다리를 놓는다. 주(主) 영들이 사람의 파라다이스 상승 계획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이다.

일곱 주(主) 영들은 대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개인적 대표들이다; 그러나 이들 권속 존재들 중 거의 대부분이 파라다이스 완전의 경로에서 필사자 진보의 상승체계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하여는 거의 또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 중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인간이 납득하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파라다이스 상승에 대한 너희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본톤의 주(主) 영이 다음과 같은 활동 구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지역우주 생명운반자들의 생명-창시(創始) 과정.

2. 지역우주 창조 영에 의해 그 세계들에게 증여된 보조 마음-영들의 생명 활성화.

3. 직선적-중력-반응하는 조직된 물질단위들에 의해 드러나는 에너지 현시활동에서의 동요.

4. 분별불가 절대자의 장악에서 충분히 해방될 때, 그래서 직선중력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그리고 우주 힘 지도자들과 및 그들 연관-동료들의 조종에 응답하게 되는, 창발에너지의 행동.

5. 유란시아에 성령으로 알려진,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 영의 증여.

6. 유란시아에서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증여 아들들의 영의 그 이후의 증여.

surface of Paradise.

16.4.5 (189.6) Unquestionably, when we encounter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the various Morontia Power Supervisors, we are face to face with certain of the unrevealed activities of the Master Spirits. Who, aside from these ancestors of both physical controllers and spirit ministers, could have contrived so to combine and associate material and spiritual energies as to produce a hitherto nonexistent phase of universe reality — morontia substance and morontia mind?

16.4.6 (189.7) Much of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worlds is of the morontia order, a phase of universe reality wholly unknown on Urantia. The goal of personality existence is spiritual, but the morontia creations always intervene, bridging the gulf between the material realms of mortal origin and the superuniverse spheres of advancing spiritual status. It is in this realm that the Master Spirits make their great contribution to the plan of man's Paradise ascension.

16.4.7 (190.1)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personal representatives who function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but since a large majority of these subordinate beings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in the path of Paradise perfection, little or nothing has been revealed about them. Much, very much, of the activit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remains hidden from human understanding because in no way does it directly pertain to your problem of Paradise ascent.

16.4.8 (190.2) It is highly probable, though we cannot offer definite proof, that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exerts a decided influence in the following spheres of activity:

16.4.9 (190.3) 1. The life-initiation procedures of the local universe Life Carriers.

16.4.10 (190.4) 2. The life activation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bestowed upon the worlds by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16.4.11 (190.5) 3. The fluctuations in energy manifestations exhibited by the linear-gravity-responding units of organized matter.

16.4.12 (190.6) 4. The behavior of emergent energy when fully liberated from th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us becoming responsive to the direct influence of linear gravity and to the manipulation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16.4.13 (190.7) 5. The bestowal of the ministry spirit of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known on Urantia as the Holy Spirit.

16.4.14 (190.8) 6. The subsequent bestowal of the spirit of the bestowal Sons, on Urantia called the Comforter or the Spirit of Truth.

7. 지역우주들과 초우주의 반영성 기능구조. 이 비범한 현상과 관련된 많은 특성들은 공동 행위자 그리고 최극존재와 관계적-연합된 주(主) 영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되기가 매우 어렵다.

일곱 주(主) 영들의 각가지 작업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 활동들의 광대한 범위에서 그들이 아무 상관없는 두 영역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와 사명활동 그리고 분별불가절대자의 불가해한 기능들이다.

제 5 장. 창조체들에 대한 관해

대우주의 각 부분, 각 개별 우주와 세계는, 모든 일곱 주(主) 영들의 연합된 조언과 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단지 한 분의 개인적 손길과 색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각 주(主) 영의 개인적 본성은 그의 초우주 전체에 가득 퍼지고 그리고 독특하게 조건을 갖춘다.

일곱 주(主) 영들의 이 개인적 영향을 통하여,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밖에 있는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의 각 창조체는 이들 일곱 파라다이스 영들 중 어떤 하나의 선재(先在) 본성을 나타내는 개별존재성의 특징적 표식을 반드시 지녀야만 한다. 일곱 초우주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주민 창조체, 사람 또는 천사(天使)는 출생적 정체화구현의 이 표지를 언제까지나 지닐 것이다.

일곱 주(主) 영들은 우주의 진화적 세계들에서 개별 창조체들의 물질적 마음들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오르본톤의 주(主) 영의 마음-영 영향의 개인적 현존을 체험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주(主) 영이 한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비교적 초기 진화시기에 개별 필사자 마음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각 지역 창조의 운명들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의 배우자이자 연관-동료인, 그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 어머니 영은, 본성과 성격에 있어서 오르본톤의 그 주(主) 영과 매우 비슷하다.

주(主) 영의 물리적 표식은 사람의 물질적 기원의 일부분이다. 모론시아 생애 전체는 동일한 이 주(主) 영의 계속되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승하는 필사자가 이 동일한 감독하는 영의 특징적 표식을 결코 충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주(主) 영의 날인은 필사자 상승의 모든 하보나-이전(以前) 단계의 바로 그 실존에 기본적이다.

16:4.15 (190.9) 7. The reflectivity mechanism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 Many features connected with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can hardly be reasonably explained or rationally understood without postulating the activity of the Master Spirits in association with the Conjoint Actor and the Supreme Being.

16:4.16 (190.10) Notwithstanding our failure adequately to comprehend the manifold working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e are confident there are two realms in the vast range of universe activities with which they have nothing whatever to do: the bestowal and ministr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inscrutabl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5. RELATION TO CREATURES

16:5.1 (190.1) Eac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each individual universe and world, enjoys the benefits of the united counsel and wisdom of all Seven Master Spirits but receives the personal touch and tinge of only one. And the personal nature of each Master Spirit entirely pervades and uniquely conditions his superuniverse.

16:5.2 (190.1) Through this personal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every creature of every order of intelligent beings,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must bear the characteristic stamp of individuality indicative of the ancestral nature of some one of these Seven Paradise Spirits. As concerns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native creature, man or angel, will forever bear this badge of natal identification.

16:5.3 (191.1) The Seven Master Spirits do not directly invade the material minds of the individual creatur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 mortals of Urantia do not experience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mind-spirit influence of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If this Master Spirit does attain any sort of contact with the individual mortal mind during the earlier evolutionary ages of an inhabited world, it must occur through the ministry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the consort and associate of the Creator Son of God who presides over the destinies of each local creation. But this very Creative Mother Spirit is, in nature and character, quite like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16:5.4 (191.2) The physical stamp of a Master Spirit is a part of man's material origin. The entire morontia career is lived under the continuing influence of this same Master Spirit. It is hardly strange that the subsequent spirit career of such an ascending mortal never fully eradicates the characteristic stamp of this same supervising Spirit. The impress of a Master Spirit is basic to the very existence of every pre-Havona stage of mortal ascension.

뚜렷한 개인성 경향들이 진화적 필사자들의 일생 체험에서 전시되는 데, 그것들은 각각의 초우주에 있는 특징이며,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주(主) 영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 개인성 경향들은 그러한 상승자들이 10억 개의 하보나 교육 구체들에서 만나는 긴 훈련과 통합시키는 단련에 따르게 된 이후라 하더라도 결코 충분히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이후의 강력한 파라다이스 문화도 초우주 기원의 표시를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다. 영원에 두루, 상승하는 필사자는 그가 탄생된 초우주를 지배하는 영을 표시하는 특색들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는 최종의 무리단 안에서도, 진화적 창조에 대한 완벽한 삼위일체 관계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묘사하도록 요구될 때, 각 초우주로부터 한 명씩, 일곱 최종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항상 이루어진다.

제 6 장. 조화우주 마음

주(主) 영들은 대우주의 지적 잠재, 조화우주 마음의 칠중 근원이다. 이 조화우주 마음은 셋째 근원이며 중심의 마음에 대한 하위-절대적 현시활동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마음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 종족들의 관련사들에서 일곱 주(主) 영들의 직접적 영향력을 마주치지 않는다. 너희는 네바돈의 창조 영의 즉각적 영향 아래에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주(主) 영들이 모든 창조체 마음의 기본 반응들을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거주하는, 저들 개별존재들의 일생 안에서 기능하도록 지역우주들 안에 특화되어온 지적 그리고 영적 잠재들의 실제적 근원이기 때문이다.

조화우주적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간 그리고 초(超)인간 마음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친족 관계를 설명한다. 유사(類似) 영들이 서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유사 마음들 역시 매우 우애적이고 서로간의 협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 마음들은 때로 놀라운 유사성과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의 경로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조화우주적 마음의 전체 개인성 관계적-연합들 안에는 “실체 응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질특성이 존재한다.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선험적 가정(假定)에 내포된 것에서의 어떤 도움도 없는 희생자들이 되어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의지 창조체들의 이 우주적인 조화우주 부여-자질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실체 감수성은, 에너지-물질이 중력에 응답하는 것과 똑같이, 실체의 일정 위상들에 응답한다. 이들 초물질 실체들이 조화우주의 마음에 그렇게 응답한다

16:5.5 (191.3) The distinctive personality trends exhibited in the life experience of evolutionary mortals, which are characteristic in each superuniverse, and which are directly expressive of the nature of the dominating Master Spirit, are never fully effaced, not even after such ascenders are subjected to the long training and unifying discipline encountered on the one billion educational spheres of Havona. Even the subsequent intense Paradise culture does not suffice to eradicate the earmarks of superuniverse origin. Throughout all eternity an ascendant mortal will exhibit traits indicative of the presiding Spirit of his superuniverse of nativity. Even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when it is desired to arrive at or to portray a *complete* Trinity relationship to the evolutionary creation, always a group of seven finaliters is assembled, one from each superuniverse.

6. THE COSMIC MIND

16:6.1 (191.4) The Master Spirits are the sevenfold source of the cosmic mind,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the grand universe. This cosmic mind is a subabsolute manifestation of th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in certain ways, is functionally related to the mind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16:6.2 (191.5) On a world like Urantia we do not encount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the affairs of the human races. You live under the immediate influence of the Creative Spirit of Nebadon. Nevertheless these same Master Spirits dominate the basic reactions of all creature mind because they are the actual sources of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potentials which have been specialized in the local universes for function in the lives of those individuals who inhabit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16:6.3 (191.6) The fact of the cosmic mind explains the kinship of various types of human and superhuman minds. Not only are kindred spirits attracted to each other, but kindred minds are also very fraternal and inclined towards co-operation the one with the other. Human minds are sometimes observed to be running in channels of astonishing similarity and inexplicable agreement.

16:6.4 (191.7) There exists in all personality associations of the cosmic mind a quality which might be denominated the “reality response.” It is this universal cosmic endowment of will creatures which saves them from becoming helpless victims of the implied a priori assumption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This reality sensitivity of the cosmic mind responds to certain phases of reality just as energy-material responds to gravity. It would be still more correct to say that these

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조화우주적 마음은 우주 실체의 세 차원에서 반드시 응답한다(응답을 인식한다). 이 응답들은 분명하게-추론하는 그리고 깊이-사색하는 마음들에게 자아-명백하다. 이들 실체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원인—물리적 감각의 실체 권역, 논리적 확일성의 과학적 영역, 사실적인 것과 비(非)사실적인 것의 구분, 조화우주적 응답에 근거한 반영적인 결론. 이것은 조화우주적 분간의 수학적 형태이다.

2. 의무—철학적 영역에서의 도덕의 실체 권역, 이성의 경계장, 상대적인 옳고 그릇됨에 대한 인식. 이것은 조화우주적 분간의 사법적 형태이다.

3. 경배—종교적 체험에서의 실체의 영적 권역, 신성한 동료관계의 개인적 실현, 영 가치들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존에 대한 확신, 하느님의 하인 지위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쁨과 해방으로의 상승. 이것은 조화우주적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력, 조화우주적 차별성구현에 대한 존경하는 그리고 경배심이 넘치는 형태이다.

이들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 이들 조화우주 응답들은 조화우주 마음 안에 타고난 것이며, 이 조화우주 마음은 모든 의지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된다. 삶의 체험은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을 개발하지 못할 수는 결코 없다; 이는 그들이 반영적 사고(思考)의 자아-의식을 이루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있는 그리고 독자적인 조화우주 사고(思考)의 본질특성들을 경작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유란시아에서는 거의 없다고 기록하자니 슬프다.

지역우주 마음 증여에서, 조화우주 마음의 이들 세 가지 통찰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아-의식적인 개인성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선형적 가정들을 구성한다. 달리 말하자면, 무한자의 이들 세 현시활동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은, 자아-게시의 조화우주적 기법에 의해서이다. 물질-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인지된다; 마음-이성은 그것의 도덕적 의무를 직관적으로 안다; 영-신앙(경배)은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종교이다. 반영적 사고(思考) 안에서 이들 세 기본 요소들은 개인성 개발에서 통합되고 조화-협동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은 균형을 잃게 되어서 그들의 해당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통합될 때, 그들은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진정한 종교적 체험의 상호관련 안에 이루어지는 강력한 성격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사물, 의미, 가치들로 겪는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사람의 체험에 객관적인 타당성, 실체성을 주는 것이 바로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들이다.

supermaterial realities so respond to the mind of the cosmos.

16:6.5 (192.1) The cosmic mind unfailingly responds (recognizes response) on three levels of universe reality. These responses are self-evident to clear-reasoning and deep-thinking minds. These levels of reality are:

16:6.6 (192.2) 1. *Causation* — the reality domain of the physical senses, the scientific realms of logical uniformity,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ctual and the nonfactual, reflective conclusions based on cosmic response. This is the mathematic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7 (192.3) 2. *Duty* — the reality domain of morals in the philosophic realm, the arena of reason, the recognition of relative right and wrong. This is the judici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8 (192.4) 3. *Worship* — the spiritual domain of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the personal realization of divine fellowship, the recognition of spirit values, the assurance of eternal survival, the ascent from the status of servants of God to the joy and liberty of the sons of God. This is the highest insight of the cosmic mind, the reverential and worshipfu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16:6.9 (192.5) The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s, these cosmic responses, are innate in the cosmic mind, which endows all will creatures. The experience of living never fails to develop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ey are constitutive in the self-consciousness of reflective thinking. But it is sad to record that so few persons on Urantia take delight in cultivating these qualities of courageous and independent cosmic thinking.

16:6.10 (192.6) In the local universe mind bestowals, these three insights of the cosmic mind constitute the a priori assump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man to function as a rational and self-conscious personality in the realm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Stated otherwise,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se three manifestations of the Infinite is by a cosmic technique of self-revelation. Matter-energy is recognized by the mathematical logic of the senses; mind-reason intuitively knows its moral duty; spirit-faith (worship) is the religion of the reality of spiritual experience. These three basic factors in reflective thinking may be unified and co-ordinated in personality development, or they may become disproportionate and virtually unrelated in their respective functions. But when they become unified, they produce a strong character consisting in the correlation of a factual science, a moral philosophy, and a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And it is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at give objective validity, reality, to man's experience in and with things, meanings,

인간 마음의 이들 타고난 자질들을 개발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일생 체험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고결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개인성의 목적이다.

제 7 장. 도덕, 덕목, 그리고 개인성

지능만으로는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과 덕목은 인간 개인성에 토착적인 것이다. 도덕적 직관, 의무의 실현은 인간 마음 자질의 한 요소이며 인간 본성의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것들: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력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정신은 그의 동물 친족들의 그것을 훨씬 초월하지만, 인간을 동물 세계로부터 특별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그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본성들이다.

동물의 선택하는 응답은 습성이라는 운동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비교적 고등 동물들의 통찰력처럼 보이는 것들은 운동 차원에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운동에서의 체험 이후에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탐구 또는 실험보다 그 이전에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로지 개인성만이 그 어떤 것이 행해지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다; 오직 개인성들만이 체험 이전에 통찰력을 갖는다. 개인성은 그것을 움직이기 이전에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살펴 아는 것으로서도 배울 수 있다. 비(非)개인적 동물은 보통 움직임으로만 배운다.

체험의 결과로서, 동물은 한 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누적된 체험에 기초된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성은 그 목표 자체를 실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람된-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지능 혼자서는 분간되지 않는 결말들에 도달하는 최선의 수단들을 분간해 낼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그로 하여금 결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수단들 사이에서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존재는 덕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능적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안다.

사람이 그가 필사자로서 분투하고 있는 것의 결말을 분간하지 못할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실존에서의 동물적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그의 조화 우주-마음 자질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인 물질적 총명, 도덕적 분간,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우월한 장점들을 자신이 활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and values.

16.6.11 (192.7) I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to develop and sharpen these innate endowments of the human mind; of civilization to express them; of life experience to realize them; of religion to ennoble them; and of personality to unify them.

7. MORALS, VIRTUE, AND PERSONALITY

16.7.1 (192.8) Intelligence alone cannot explain the moral nature. Morality, virtue, is indigenous to human personality. Moral intuition, the realization of duty, is a component of human mind endowment and is associated with the other inalienables of human nature: scientific curiosity and spiritual insight. Man's mentality far transcends that of his animal cousins, but it is his moral and religious natures that especially distinguish him from the animal world.

16.7.2 (193.1) The selective response of an animal is limited to the motor level of behavior. The supposed insight of the higher animals is on a motor level and usually appears only after the experience of motor trial and error. Man is able to exerci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 prior to all exploration or experimentation.

16.7.3 (193.2) Only a personality can know what it is doing before it does it; only personalities possess insight in advance of experience. A personality can look before it leaps and can therefore learn from looking as well as from leaping. A nonpersonal animal ordinarily learns only by leaping.

16.7.4 (193.3) As a result of experience an animal becomes able to examine the different ways of attaining a goal and to select an approach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But a personality can also examine the goal itself and pass judgment on its worth-whileness, its value. Intelligence alone can discriminate as to the best means of attaining indiscriminate ends, but a moral being possesses an insight which enables him to discriminate between ends as well as between means. And a moral being in choosing virtue is nonetheless intelligent. He knows what he is doing, why he is doing it, where he is going, and how he will get there.

16.7.5 (193.4) When man fails to discriminate the ends of his mortal striving, he finds himself functioning on the animal level of existence. He has failed to avail himself of the superior advantages of that material acumen, moral discrimination, and spiritual insight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his cosmic-mind endowment as a personal being.

덕목은 정의(正義)-조화우주와의 일치—이다. 덕목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을 아는 것이다. 덕목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오히려 조화우주 성취의 상승 차원 달성에 있는 진보적 체험의 실체이다. 필사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악보다 선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덕목은 실현되며, 그러한 선택 능력은 도덕적 본성의 소유에 대한 증명이다.

선과 악 사이의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의 예민함 뿐만 아니라 무지와 미성숙과 망상과 같은 그러한 영향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비례에서의 감각 또한 덕목의 실천에 관여되는데, 왜냐하면 왜곡이나 기만의 결과로서 더욱 크고 위대한 것 대신에 더욱 작은 것이 선택되었을 때, 악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영역에서의 덕목의 실천에는 상대적인 추산이나 또는 비교하는 측정의 기예가 들어간다.

사람의 도덕적 본성은 측정하는 기술, 의미들을 세밀히 헤아리는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은 영적 가치들의 의식을 가져오는 조화우주 통찰력 없이는 아무 쓸모없을 것이다. 지능의 입장에서, 사람은 그가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도덕은 결코 법이나 강제로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적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향기로운 개인들과 도덕적으로 비교적 덜 응답하는 자들,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접촉에서의 감화로서 확산되어야만 한다.

도덕적 행동들은, 우월한 최종들의 선택에서 또한 동시에 이 최종을 달성하는 도덕적 수단들의 선택에서, 선택하는 분별력에 의해 지도되고, 가장 높은 지능으로 특징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간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성은 고결하다. 최극 덕목은,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을 다하여 택한다.

제 8 장. 유란시아 개인성

수많은 계층의 개인성들이 우주 실재성의 다양한 차원에서 기능하듯이 우주 아버지는 그들에게 개인성을 증여한다. 유란시아 인간 존재들은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유한-필사 유형의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우리가 개인성을 정의(定意)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증여된 개인성이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기능하도록 기능구조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인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의 전체총화

16:7.6 (193.5) Virtue is righteousness — conformity with the cosmos. To name virtues is not to define them, but to live them is to know them. Virtue is not mere knowledge nor yet wisdom but rather the reality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attainment of ascending levels of cosmic achievement. In the day-by-day life of mortal man, virtue is realized by the consistent choosing of good rather than evil, and such choosing ability is evidence of the possession of a moral nature.

16:7.7 (193.6) Man's choosing between good and evil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keenness of his moral nature, but also by such influences as ignorance, immaturity, and delusion. A sense of proportion is also concerned in the exercise of virtue because evil may be perpetrated when the lesser is chosen in the place of the greater as a result of distortion or deception. The art of relative estimation or comparative measurement enters into the practice of the virtues of the moral realm.

16:7.8 (193.7) Man's moral nature would be impotent without the art of measurement, the discrimination embodied in his ability to scrutinize meanings. Likewise would moral choosing be futile without that cosmic insight which yields the consciousness of spiritual values. From the standpoint of intelligence, man ascends to the level of a moral being because he is endowed with personality.

16:7.9 (193.8) Morality can never be advanced by law or by force. It is a personal and freewill matter and must be disseminated by the contagion of the contact of morally fragrant persons with those who are less morally responsive, but who are also in some measure desirous of doing the Father's will.

16:7.10 (193.9) Moral acts are those human performanc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intelligence, directed by selective discrimination in the choice of superior ends as well as in the selection of moral means to attain these ends. Such conduct is virtuous. Supreme virtue, then, is wholeheartedly to choos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8. URANTIA PERSONALITY

16:8.1 (194.1) The Universal Father bestows personality upon numerous orders of beings as they function on diverse levels of universe actuality. Urantia human beings are endowed with personality of the finite-mortal type, functioning on the level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16:8.2 (194.2) Though we can hardly undertake to define personality, we may attempt to narrate our understanding of the known factors which go to make up the ensemble of material, mental, and spiritual energies whose interassociation

를 이루게 하는 알려진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납득을 설명하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성은 그 실존이 생각 조절자의 증여와는 독립적이고 그것보다 앞서는, 기원적 본성을 갖는 독특한 자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자의 현존은 개인성의 질적 현시활동을 증강시킨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성은 다양하고 기원적이고 배타적이다; 개인성의 현시활동은, 개인성 현시활동을 위한 유기적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연관된 에너지들의 본성과 본질특성들에 의해 한층 더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분별화된다.

개인성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 주어진 계열, 유형, 계층, 또는 원형틀을 갖는 개인들은 서로 닮을 수 있고 또 그러하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개인성은 우리가 아는 한 개별존재의 그 모습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한 존재가 언젠가 미래 시간에 형태, 마음, 또는 영 상태에서 변화하는 본성과 범위에 상관없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개인성은 그의 개인성의 표현과 현시활동인 매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바뀌어 올 수 있었던가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우리가 알아 왔던 자로 그 개인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한 개별존재의 바로 그 부분이다.

창조체 개인성은, 자아-현시와 필사자 반응 습성의 특징적 현상인 두 가지: 즉, 자아-의식 그리고 연관된 상대적 자유의지에 의해 구별된다.

자아-의식은 개인성 실재성에 대한 지적 깨달음에 있다; 그것은 다른 개인성들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것은 조화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개별존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우주의 개인성 관계들 안에서의 정체성 지위의 달성에 상당한다. 자아-의식은 마음 봉사사명의 실재성의 인식과 창조적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상대적 독립이 실현되었음을 암시한다.

인간 개인성의 자아-의식을 특징짓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여된다: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2. 영적 선택, 진리 식별.
3. 사심 없는 사랑, 형제신분의 봉사.
4. 목적이 있는 협동, 집단 충성심.
5. 조화우주 통찰력, 우주 의미들의 파악.

constitutes the mechanism wherein and whereon and wherewith the Universal Father causes his bestowed personality to function.

16:8.3 (194.3) Personality is a unique endowment of original nature whose existence is independent of, and antecedent to,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 Nevertheless, the presence of the Adjuster does augment the qualitativ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Thought Adjusters, when they come forth from the Father, are identical in nature, but personality is diverse, original, and exclusive; an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is further conditioned and qualified by the nature and qualities of the associated energies of a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nature which constitute the organismal vehicle for personality manifestation.

16:8.4 (194.4) Personalities may be similar, but they are never the same. Persons of a given series, type, order, or pattern may and do resemble one another, but they are never identical. Personality is that feature of an individual which we *know*, and which enables us to identify such a being at some future time regardless of the nature and extent of changes in form, mind, or spirit status. Personality is that part of any individual which enables us to recognize and positively identify that person as the one we have previously known, no matter how much he may have changed because of the modification of the vehicle of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of his personality.

16:8.5 (194.5) Creature personality is distinguished by two self-manifesting and characteristic phenomena of mortal reactive behavior: self-consciousness and associated relative free will.

16:8.6 (194.6) Self-consciousness consists in intellectual awareness of personality actuality; it includ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ies. It indicates capacity for individualized experience in and with cosmic realities, equating to the attainment of identity status in the personality relationships of the universe. Self-consciousness connotes recognition of the actuality of mind ministrations and the realization of relative independence of creative and determinative free will.

16:8.7 (194.7) The relative free will which characterizes the self-consciousness of human personality is involved in:

16:8.8 (194.8) 1. Moral decision, highest wisdom.

16:8.9 (194.9) 2. Spiritual choice, truth discernment.

16:8.10 (194.10) 3. Unselfish love, brotherhood service.

16:8.11 (194.11) 4. Purposeful co-operation, group loyalty.

16:8.12 (194.12) 5. Cosmic insight, the grasp of

6. 개인성 전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전념함.

7. 경배,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진지한 추구하고 신성한 가치-증여자에 대한 전심으로의 사랑.

인간 개인성의 유란시아 유형은 생명 활성화의 전기화학적 계층에 속하는 그리고 부모에 의해 재생산되는 원형들을 갖는 조화우주 마음의 오르본톤 계열들의 네바돈 계층으로 자질로서 부여 받은, 네바돈 유기체 유형의 행성에서 변경을 이루는 물리적 기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한 마음-자질로서 부여된 필사자 기능구조에 개인성이라는 신성한 선물의 증여는, 조화우주 시민신분이라는 존엄성을 수여하며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화우주의 기본적인 세 마음 실체들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즉시 반응하게 되도록 만든다:

1. 물리적 원인성에 대한 확일성에서의 수학적 또는 논리적 인식.

2.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책무를 이성으로 인식.

3. 인간성의 사랑하는 봉사와 연관되어진, 신(神)에 대한 동료관계에서의 경배를 신앙으로 파악.

그러한 어떤 개인성 자질의 충만한 기능은 신(神) 친족관계가 시작되는 실현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전(前)개인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신분은 정말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느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신성한 현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성-중력 순환회로에 대한 반응적 응답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 9 장. 인간 의식의 실체

조화우주-마음이-자질로서 부여된, 조절자가-내주하는, 개인적 창조체는 에너지 실체, 마음 실체 그리고 영 실체에 대한 타고난 인식-실현을 지닌다. 의지 창조체는 사실과 법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인간 의식 이외에, 모든 인간 체험은, 조화우주 인식의 이들 세 우주 실체 응답들의 통일에 유효성의 직관적 실현이 덧붙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관적이다.

하느님을-식별하는 필사자는 생존하는 혼의 진화에서 이들 세 가지 조화우주 본질특성들의 통일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불멸의 혼을 복제하기 위하여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협력하여 도덕적 마음이 일하는 물리적 장막 안에서의 사람의 최극 사업이다. 초기의 시작부터 그 혼은 실체

universe meanings.

16:8.13 (194.13) 6. Personality dedication, wholehearted devotion to doing the Father's will.

16:8.14 (195.1) 7. Worship, the sincere pursuit of divine values and the wholehearted love of the divine Value-Giver.

16:8.15 (195.2) The Urantia type of human personality may be viewed as functioning in a physical mechanism consisting of the planetary modification of the Nebadon type of organism belonging to the electrochemical order of life activation and endowed with the Nebadon order of the Orvonton series of the cosmic mind of parental reproductive pattern. The bestowal of the divine gift of personality upon such a mind-endowed mortal mechanism confers the dignity of cosmic citizenship and enables such a mortal creature forthwith to become reactive to the constitutive recognition of the three basic mind realities of the cosmos:

16:8.16 (195.3) 1. The mathematical or logical recognition of the uniformity of physical causation.

16:8.17 (195.4) 2. The reasoned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of moral conduct.

16:8.18 (195.5) 3. The faith-grasp of the fellowship worship of Deity, associated with the loving service of humanity.

16:8.19 (195.6) The full function of such a personality endowment is the beginning realization of Deity kinship. Such a selfhood, indwelt by a prepersonal fragment of God the Father, is in truth and in fact a spiritual son of God. Such a creature not only discloses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the gift of the divine presence but also exhibits reactive response to the personality-gravity circuit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personalities.

9. REALITY OF HUMAN CONSCIOUSNESS

16:9.1 (195.7) The cosmic-mind-endowed, Adjuster-indwelt, personal creature possesses innate recognition-realization of energy reality, mind reality, and spirit reality. The will creature is thus equipped to discern the fact, the law, and the love of God. Aside from these three inalienables of human consciousness, all human experience is really subjective except that intuitive realization of validity attaches to the *unification* of these three universe reality responses of cosmic recognition.

16:9.2 (195.8) The God-discerning mortal is able to sense the unification value of these three cosmic qualities in the evolution of the surviving soul, man's supreme undertaking in the physical tabernacle where the moral mind collaborates with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o dualize the immortal soul. From its earliest inception the soul is *real*; it

적이다; 그것은 조화우주 생존 본질특성들을 갖고 있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자연적 죽음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 인간 체험의 실제 영적 가치들은 생각 조절자의 이어지는 체험의 일부분으로 생존한다. 그러한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의 개인성 가치들은 실재화하는 최종존재의 개인성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 잔존한다. 잔존하는 그러한 개인성의 본질특성들은 정체성은 빼앗겼지만 육신에서의 필사 삶 동안에 누적된 체험적 가치들은 그렇지 않다. 정체성의 생존은 모른시아 지위의 불멸의 혼의 생존과 증가하는 신성한 가치에 달려있다. 개인성 정체성은 그 혼의 생존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생존한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의식적인 자아가 결코 아니고 자아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각이 상호적임을 의미한다; 즉 아는 것만큼 알려지는 것이 자아이다. 이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서 사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체에 대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동료 존재의 실체에 대해 확신되어야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이 하느님-의식과 같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지식, 표상, 그리고 사람의 구성 자질—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된 조화우주 선물들이 문명을 이룬다.

문명은 그것들이 조화우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것들은 종족의 개별존재들 안에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구성 요소들—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병합된 기여에 의해 양육되어야만 한다. 문명들은 왔다가 가지만, 과학과 도덕과 종교는 항상 그 붕괴 속에 생존한다.

예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 예수의 삶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본다. 예수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가득 하느님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실제적 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실현(인식)은 양도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안에 구성요소로서 들어있다.

어버이의 본능을 제외하고, 사심-없음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개인성들이 자연적으로 사랑 받거나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심-없고 이타적인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성, 도덕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종교에서의 충동, 곧 하느님을-알고-있음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성을 인식하는 것, 자아-의식도 또한, 바로 이 타고난 다른 이를-인식함의 사실, 곧 인간부터 신성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는 자신과 다른 개인성의 실체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이 타고난 능력의, 바로 그 사실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has cosmic survival qualities.

16.9.3 (195.9) If mortal man fails to survive natural death, the real spiritual values of his human experience survive as a part of the continuing experience of the Thought Adjuster. The personality values of such a nonsurvivor persist as a factor in the personality of the actualizing Supreme Being. Such persisting qualities of personality are deprived of identity but not of experiential values accumulated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survival of identity is dependent on the survival of the immortal soul of morontia status and increasingly divine value. Personality identity survives in and by the survival of the soul.

16.9.4 (195.10) Human self-consciousness implies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selves other than the conscious self and further implies that such awareness is mutual; that the self is known as it knows. This is shown in a purely human manner in man's social life. But you cannot become so absolutely certain of a fellow being's reality as you can of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that lives within you. The social consciousness is not inalienable like the God-consciousness; it is a cultural development and is dependent on knowledge, symbol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endowment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nd these cosmic gifts, socialized, constitute civilization.

16.9.5 (196.1) Civilizations are unstable because they are not cosmic; they are not innate in the individuals of the races. They must be nurtured by the combined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factor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Civilizations come and go, but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lways survive the crash.

16.9.6 (196.2) Jesus not only revealed God to man, but he also made a new revelation of man to himself and to other men. In the life of Jesus you see man at his best. Man thus becomes so beautifully real because Jesus had so much of God in his life, and the realization (recognition) of God is inalienable and constitutive in all men.

16.9.7 (196.3) Unselfishness, aside from parental instinct, is not altogether natural; other persons are not naturally loved or socially served. It requires the enlightenment of reason, morality, and the urge of religion, God-knowingness, to generate an unselfish and altruistic social order. Man's own personality awareness, self-consciousness, is also directly dependent on this very fact of innate other-awareness, this innate ability to recognize and grasp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y, ranging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사심 없는 사회의식은, 바탕이, 종교의식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경우에 그렇다. 아니라면,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추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랑이 빠져있다. 오직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만이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아-의식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자와 창조체. 공동체 의식(意識)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실체 실현들이 숨어 있고 선천적이다:

1. 지식의 추구, 과학의 논리.

2. 도덕적 가치의 추구, 의무 감각.

3. 영적 가치의 추구, 종교적 체험.

4. 개인성 가치의 추구, 하느님의 실체를 개인성으로 깨닫는 능력 그리고 동료 개인성들과 우리의 형제우애적 관계를 동시 발생적 실현으로 깨닫는 능력.

너희가 이미 하느님을 너희 창조자 아버지로 의식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창조체 형제로서의 사람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신분은 우리가 우리들을 설득하여 형제신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이다. 그리고 아버지신분은 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에게 우주실체가 되거나 될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자신이 그러한 모든 존재들에게 개인성으로 증여하였고 우주 개인성 순환회로의 장악 안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첫째는 그 분 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조화우주 마음이 그 자체의 근원, 무한한 영의 무한 마음을 자아-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 영원한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실체를 의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유버사로부터 온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됨]

16:9.8 (196.4) Unselfish social consciousness must be, at bottom, a religious consciousness; that is, if it is objective; otherwise it is a purely subjective philosophic abstraction and therefore devoid of love. Only a God-knowing individual can love another person as he loves himself.

16:9.9 (196.5) Self-consciousness is in essence a communal consciousness: God and man, Father and son, Creator and creature. In human self-consciousness four universe-reality realizations are latent and inherent:

16:9.10 (196.6) 1. The quest for knowledge, the logic of science.

16:9.11 (196.7) 2. The quest for moral values, the sense of duty.

16:9.12 (196.8) 3. The quest for spiritual values, the religious experience.

16:9.13 (196.9) 4. The quest for personality valu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God as a personality and the concurrent realization of our fraternal relationship with fellow personalities.

16:9.14 (196.10) You become conscious of man as your creature brother because you are already conscious of God as your Creator Father. Fatherhood is the relationship out of which we reason ourselves into the recognition of brotherhood. And Fatherhood becomes, or may become, a universe reality to all moral creatures because the Father has himself bestowed personality upon all such beings and has encircled them within the grasp of the universal personality circuit. We worship God, first, because *he is*, then, because *he is in us*, and last, because *we are in him*.

16:9.15 (196.11) Is it strange that the cosmic mind should be self-consciously aware of its own source, the infinit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and at the same time conscious of the physical reality of the far-flung universes, the spiritual reality of the Eternal Son, and the personality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16:9.16 (196.12)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from Uversa.]

제 17 편 일곱 최극 영 집단

⇨ 016

유랜시아 책

018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7 편 일곱 최극 영 집단

섹션

소개

- 제 1 장. 일곱 최극집행자
- 제 2 장. 장엄자—반영의 우두머리
- 제 3 장. 반영 영
- 제 4 장. 반영 영상 도움자
- 제 5 장. 순환회로의 일곱 영
- 제 6 장. 지역우주 창조 영
- 제 7 장. 보조 마음-영
- 제 8 장. 최극 영들의 기능

PAPER 17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 2. Majeston — Chief of Reflectivity
- 3. The Reflective Spirits
- 4. The Reflective Image Aids
-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 7. The Adjutant Mind-Spirits
- 8. Functions of the Supreme Spirits

소개

일곱 최극 영 집단들은 대우주의 일곱-분할된 관리-행정에 대한 우주 조화-협동 지도자들이다. 모두가 무한한 영의 기능적 가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집단들은 대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녀들로 분류된다:

- 1. 일곱 주(主) 영.
- 2. 일곱 최극집행자.
- 3. 반영 영.

나머지 네 집단들은 무한한 영의 창조활동들 또는 창조지위의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 1. 반영 영상 도움자.
- 2. 순환회로의 일곱 영 .
- 3. 지역우주 창조 영.
- 4. 보조 마음-영.

INTRODUCTION

17:0.1 (197.1)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universal co-ordinating directors of the seven-segmente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lthough all are classed among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 following three groups are usually classified as children of the Paradise Trinity:

17:0.2 (197.2) 1. The Seven Master Spirits.

17:0.3 (197.3)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17:0.4 (197.4) 3. The Reflective Spirits.

17:0.5 (197.5) The remaining four group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creative acts of the Infinite Spirit or by his associates of creative status:

17:0.6 (197.6) 4. The Reflective Image Aids.

17:0.7 (197.7)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17:0.8 (197.8)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17:0.9 (197.9) 7. The Adjutant Mind-Spirits.

이들 일곱 계층들은 유버사에서 일곱 최극 영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기능적 권역은 영원한 섬의 가장자리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의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과 하보나 순환회로들과 초우주 정부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관리-행정과 감독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의 진화하는 마음 영역에 증여되는 보조자들의 낮은 봉사에 이르기까지 미친다.

일곱 주(主) 영들은 멀리-퍼지는 이 영역의 조화-협동하는 지도자들이다. 조직된 물리적 힘, 마음 에너지, 그리고 미(未)개인적 영 사명활동에 대한 행정-관리적 규제에 속하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그 밖에는 그들이 가지각색의 그들의 연관-동료들을 통하여 기능한다. 집행적 본성—통치, 규범, 조절들, 그리고 행정-관리적 결정들—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주(主) 영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개인들 안에서 활동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주(主) 영들이 하보나 순환회로 일곱 영을 통하여 기능할 수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에서는 그들이 반영 영들의 통로를 통하여 자신들을 계시하고, 그들이 반영 영상 도움자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통신하고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개인들을 통하여 활동한다.

일곱 주(主) 영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범정보다 아래에 있는 우주 관리-행정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너희 지역우주는 오르본톤의 주(主) 영에 의해 우리 초우주의 일부분으로 관리-운영되지만, 네바돈의 원주민 존재들과 관계되는 그의 기능은 너희 지역우주 본부, 구원자별에 거주하는 창조 어머니 영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행되고 개인적으로 지도된다.

제 1 장. 일곱 최극집행자

주(主) 영들의 집행본부는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들을 차지하며, 그것들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가장 안쪽의 하보나 순환회로 사이에서 중앙 섬 주변을 돌고 있다. 이 집행구체들은 최극집행자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데, 이들 일곱으로 된 한 집단은, 일곱 주(主) 영들의 우주적 대표자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형의 존재로서 일곱 주(主) 영의 명세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의해 삼위일체화되었다.

주(主) 영들은 이들 최극집행자를 통하여 초우주 정부들의 다양한 부서들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기본적 구성 경향들을 거의 대부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균

17:0.10 (197.10) These seven orders are known on Uversa as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Their functional domain extends from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n the periphery of the eternal Isle, through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the Havona circuits, the governments of the superuniverses, and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local universes, even to the lowly service of the adjutants bestowed upon the realms of evolutionary mind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17:0.11 (197.11)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coordinating directors of this far-flung administrative realm. In some matters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organized physical power, mind energy, and impersonal spirit ministry, they act personally and directly, and in others they function through their multifarious associates. In all matters of an executive nature — rulings, regulations, adjustments,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 the Master Spirits act in the person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In the central universe the Master Spirits may function through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reveal themselves through the channel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act through the persons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whom they are in 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 the Reflective Image Aids.

17:0.12 (197.12) The Seven Master Spirits do not directly and personally contact universe administration below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Your local universe is administered as a part of our superuniverse by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but his function in relation to the native beings of Nebadon is immediately discharged and personally directed by the Creative Mother Spirit resident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1.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17:1.1 (198.1) The executive headquarters of the Master Spirits occupy the seven Paradise satellites of the Infinite Spirit, which swing around the central Isle between the shining sphere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nermost Havona circuit. These executive spheres are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Executives, a group of seven who were trinitized by the Father, Son, and Spiri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for beings of a type that could function as their universal representatives.

17:1.2 (198.2) The Master Spirits maintain contact with the various division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rough these Supreme Executives. It is they who very largely determine the basic

일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완전하지만, 또한 개인성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없다; 그들이 매 번 만날 때마다, 공동 회의를 주재하도록 자신들 안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과 회의를 갖기 위해 파라다이스를 향해 정기적으로 여행한다.

일곱 최극집행자들은 대우주의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자들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하보나-이후 창조의 상임위원회로 부를 수도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내부 관련사들에는 관여하지 않고, 순환회로 일곱 영을 통하여 하보나 활동의 제한된 구체들을 감독한다. 이 밖에는 그들의 감독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그들은 물리적, 지적,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일에 종사한다; 일곱 초우주들과 하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아니 모든 것을 알기까지 한다.

이들 최극집행자들은 정책들을 수립하지도 않고 우주 진행과정들을 변경시키지도 않는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선포된 신성(神性)의 계획들의 집행에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초우주에서의 옛것으로 늘 계신이의 통치에 간섭하지도 않으며, 지역우주에서의 창조자 아들들의 주권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화-협동하는 집행자들이며, 그들의 기능은 대우주 안에서 정식으로 수립된 모든 통치자들의 병합된 정책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집행자들 각자와 그의 구체의 시설들은 단일 초우주의 효과적인 관리-행정에 헌납되어 있다. 1번 최극집행자는 1번 집행 구체에서 기능하고, 1번 초우주의 관련사들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7번 최극집행자까지 계속되는데, 그는 영의 일곱 번째 파라다이스 위성으로부터 일하면서 일곱 번째 초우주 운영에 그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 일곱 번째 구체의 이름이 오르본톤인데, 이는 영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이 그들과 관련된 초우주처럼 같은 이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초우주들이 그들을 따라 이름이 붙여졌다.

일곱 번째 초우주의 집행 구체에서, 오르본톤의 관련사들을 똑바로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는 요원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설 정도의 숫자에 이르며, 실천적으로 천상 지능체의 모든 계층을 포용한다. 개인성을 파송하는 모든 초우주 봉사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그리고 생각 조절자를 제외) 파라다이스를 오가는 그들의 우주여행에서 이들 일곱 집행 세계를 통과해 지나가며, 그리고 여기에 초우주들 안에서 기능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에 의해 창조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중앙 등록부가 유지된다. 이들 영의 집행세계 중 하나에 있는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기록들의 체계는 심지어 나의 계층의 존재까지도 놀라게 만

constitutive tren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uniformly and divinely perfect, but they also possess diversity of personality. They have no presiding head; each time they meet together, they choose one of their number to preside over that joint council. Periodically they journey to Paradise to sit in council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17.1.3 (198.3)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function as the administrative co-ordin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y might be termed 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 of the post-Havona creation.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Paradise, and they direct their limited spheres of Havona activity through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Otherwise there are few limits to the scope of their supervision; they engage in the direction of things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they see all, hear all, feel all, even know all, that transpire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in Havona.

17.1.4 (198.4) These Supreme Executives do not originate policies, nor do they modify universe procedures; they are concerned with the execution of the plans of divinity promulgat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Neither do they interfere with the rule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uperuniverses nor with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the co-ordinating executives whose function it is to carry out the combined policies of all duly constituted rulers in the grand universe.

17.1.5 (198.5) Each of the executives and the facilities of his sphere are devoted to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 singl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Number One, functioning on executive sphere number one, is wholly occupied with the affairs of superuniverse number one, and so on to Supreme Executive Number Seven, working from the seventh Paradise satellite of the Spirit and devoting his energies to the managemen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name of this seventh sphere is Orvonton, for the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have the same names as their related superuniverses; in fact, the superuniverses were named after them.

17.1.6 (198.6) On the executive sphere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 staff engaged in keeping straight the affairs of Orvonton runs into numbers beyond human comprehension and embraces practically every order of celestial intelligence. All superuniverse services of personality dispatch (except Inspired Trinity Spirits and Thought Adjusters) pass through one of these seven executive worlds on their universe journeys to and from Paradise, and here are maintained the central registries for all personalities created by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o function in the superuniverses. The system of material,

든다.

최극집행자들의 직속 종속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체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에서 영화롭게 된 필사자 졸업생의 삼위일체화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최극협의회 우두머리에 의해 최극집행자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지정된다.

각각의 최극집행자는 두 개의 자문내각이 있다: 각 초우주의 본부에 있는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최극집행자의 1차 자문내각에서 1,000년 동안 봉사하도록 그들 계급에서 대표자들을 선정한다.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에는, 파라다이스 달성의 필사자들, 그리고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의 삼위일체화 아들들로 구성하는, 2차 내각이 있다; 이 기구는 일곱 초우주 본부에 과도기적으로 거하는 완전하고 상승하는 존재들에 의해 선택된다. 다른 모든 주요 관련사들은 최극집행자들에 의해 지정된다.

때때로, 큰 비밀회의들이 이들 영의 파라다이스 위성들에서 열린다. 이 세계들에 배정된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상승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삶의 투쟁과 승리의 재결합 속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영(靈) 개인성들과 회합을 갖는다. 최극집행자들이 그러한 형제우애의 회합들을 항상 주관한다.

파라다이스 시간으로 1,000년마다 한 번,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그들의 권한의 자리를 비우고 파라다이스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의 지능체 무리들에게 우주 인사와 성공 바람을 비는 그들의 1,000년마다의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 사건 많은 행사는 모든 반영 영 집단의 우두머리인, 장엄자의 현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 반영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통하여 대우주에서 그들의 모든 연관-동료들과 그렇게 동시에 교통할 수 있다.

제 2 장. 장엄자-반영의 우두머리

반영 영들은 신성한 삼위일체에 기원이 있다. 독특하고 조금은 신비로운 이들 존재들은 50명이다. 이들 비범한 개인성들 중 일곱 명은 한꺼번에 창조되었고, 그렇게 각각의 창조적인 에피소드는, 어떤 한 분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락관과 일곱 주(主) 영들의 한 분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morontial, and spiritual records on one of these executive worlds of the Spirit amazes even a being of my order.

17:1.7 (199.1) The immediate subordinates of the Supreme Executives consist for the greater part of the trinitized sons of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of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glorified mortal graduates from the agelong training of the ascendant scheme of time and space. These trinitized sons are designated for service with the Supreme Executives by the chief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7:1.8 (199.2) Each Supreme Executive has two advisory cabinets: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choose representatives from their ranks to serve for one millennium in the primary advisory cabinet of their Supreme Executiv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there is a secondary cabinet, consisting of mortals of Paradise attainment and of the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mortals; this body is chosen by the perfecting and ascending beings who transiently dwell on the seven superuniverse headquarters. All other chiefs of affairs are appointed by the Supreme Executives.

17:1.9 (199.3) From time to time, great conclaves take place on these Paradise satellites of the Spirit. Trinitized sons assigned to these worlds, together with the ascenders who have attained Paradise, assemble with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the reunions of the struggles and triumphs of the ascendant career. The Supreme Executives always preside over such fraternal gatherings.

17:1.10 (199.4) Once in each Paradise millennium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vacate their seats of authority and go to Paradise, where they hold their millennial conclave of universal greeting and well-wishing to the intelligent hosts of creation. This eventful occasion takes place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Majeston, the chief of all reflective spirit groups. And they are thus able to communicate simultaneously with all their associates in the grand universe through the unique functioning of universal reflectivity.

2. MAJESTON — CHIEF OF REFLECTIVITY

17:2.1 (199.5) The Reflective Spirits are of divine Trinity origin. There are fifty of these unique and somewhat mysterious beings. Seven of these extraordinary personalities were created at a time, and each such creative episode was effected by a liais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시간의 여명기에 발생하는 이 막중한 활동행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함께 공동 창조자들로서 기능하려는, 주(主) 영들로 대표되는,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최초 노력을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창조 잠재와 최극 창조자들의 창조 힘의 이 연합이 최극존재의 실재성의 바로 근원이다. 그러므로 반영하는 창조의 순환주기가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일곱 주(主) 영들 각자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완전한 창조 동조를 이루었을 때, 49번째 반영 영이 개인성구현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새로운 개인성 특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49명의 반영 영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모든 일의 파라다이스 중심이자 반영 우두머리인 장엄자의 개인성구현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반응이 신(神) 절대자 안에서 일어났다.

장엄자는 참된 개인, 시간과 공간의 모든 일곱 초우주들안에서의 반영현상의, 개인적이고도 결코 틀림없는 중심이다. 그는 일곱 주(主) 영들의 집합장소에 있는 만물의 중심 가까이에 영구 파라다이스 본부를 유지한다. 그는 멀리-퍼지는 창조에서 반영 봉사의 조화-협동과 유지에만 오로지 관여한다; 그는 달리 우주 관련사들의 관리-행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장엄자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에 대한 우리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신(神) 절대자와의 기능적 연락 안에서 최극존재가 유일하게 창조한, 실존하는 신성의 개인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우주섭리의 지금의 위상과 배타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 자동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는 지금, 우주개인성들의 기타 (비(非)반영적) 계층들과 관계되는 어떠한 개인적 수용력 속에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장엄자의 창조는 최극존재의 최초의 최극 창조활동을 알리는 것이었다. 활동하려는 이 의사는 최극존재 안에서 의지적이었지만, 신(神) 절대자의 엄청난 반응은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보나의 영원-출현 이후에, 그렇게 거대하고도 멀리-퍼지는 힘의 정렬 그리고 기능적 영 활동들의 조화-협동의 그러한 거대한 사실화를 우주가 목격한 적이 없다. 신(神)은 최극존재의 창조의지에 응답하고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목적인 의도를 뛰어넘고 그리고 그들의 개념적 예상을 크게 초월하였다.

우리는, 최극자와 궁극자가 신성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고 그리고는 개인성 기능의 새로운 권역으로 올라가게 될지도 모를, 향상된 우주 조화-협동의 상상이 안 되는 힘을 지닐 예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또 다른 존재들이 신(神)구현화되는 영역 안에서 목격될 지도 모를 그러한 곳, 미

17:2.2 (199.6) This momentous transaction, occurring in the dawn of time, represents the initial effort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represented by the Master Spirits, to function as cocreators with the Paradise Trinity. This union of the creative power of the Supreme Creators with the creative potentials of the Trinity is the very source of the actuality of the Supreme Being. Therefore, when the cycle of reflective creation had run its course, when each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ad found perfect creative synchrony with the Paradise Trinity, when the forty-ninth Reflective Spirit had personalized, then a new and far-reaching reaction occurred in the Deity Absolute which imparted new personality prerogatives to the Supreme Being and culminated in the personalization of Majeston, the reflectivity chief and Paradise center of all the work of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nd their associat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17:2.3 (200.1) Majeston is a true person, the personal and infallible center of reflectivity phenomena in all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He maintains permanent Paradise headquarters near the center of all things at the rendezvou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e is concerned solely with the co-ordin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flectivity service in the far-flung creation; he is not otherwise involved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17:2.4 (200.2) Majeston is not included in our catalogue of Paradise personalities because he is the only existing personality of divinity created by the Supreme Being in functional liaison with the Deity Absolute. He is a person, but he is exclusively and apparently automatically concerned with this one phase of universe economy; he does not now function in any personal capacity with relation to other (nonreflective)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17:2.5 (200.3) The creation of Majeston signaled the first supreme creative act of the Supreme Being. This will to action was volitional in the Supreme Being, but the stupendous reaction of the Deity Absolute was not foreknown. Not since the eternity-appearance of Havona had the universe witnessed such a tremendous factualization of such a gigantic and far-flung alignment of power and co-ordination of functional spirit activities. The Deity response to the creative wills of the Supreme Being and his associates was vastly beyond their purposeful intent and greatly in excess of their conceptual forecasts.

17:2.6 (200.4) We stand in awe of the possibility of what the future ages, wherein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may attain new levels of divinity and ascend to new domains of personality function, may witness in the realms of the deitization of still other unexpected and undreamed of beings who

래시대의 일들의 가능성 앞에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서 있다. 체험적 신(神)과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사이의 그러한 관계통일에 응답하는 신(神) 절대자의 잠재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제 3 장. 반영 영

49명의 반영 영들은 삼위일체 기원이지만, 그들의 출현에 따른 각 일곱 창조적 에피소드들은 본성에서 공동조상 주(主) 영의 특징들을 닮은 존재 유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신성(神性) 특징들의 관계적-연합에서 일곱 가지 가능한 조합의 본성들과 성격들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각 초우주의 본부는 이 일곱 반영 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분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모든 가능한 현시활동의 전체 위상들의 완전 반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현상이 일곱 초우주 중 어느 부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곱 유형의 각각의 한 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유형의 한 분이 각각의 초우주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었다. 서로 다른 일곱 반영 영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각 영역의 반영초점에 초우주들의 수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적 극점의 지점과는 동일하지 않다.

반영 영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명칭들은 공간의 세계들에 계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들 존재의 본성과 성격과 관계되고 파라다이스 비밀 구체들의 일곱 우주 신비 중 하나의 일부분이다.

반영의 속성, 공동 행위자, 최극 존재 그리고 주(主) 영들의 마음 차원의 현상은, 우주(宇宙) 지능의 이 광대한 기획 활동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다: 주(主) 영들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들도, 단독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이 장엄자의 이들 49명 연락 개인성들에서 이처럼 현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화-협동하는 이들 우주 반영의 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놀랍도록 자질로서 부여 받은 모든 이들 존재들의 창조자들이다. 신성의 유전형질은 창조자에서는 식별 불가능한 어떤 속성들을 때때로 창조체 안에서 나타낸다.

반영 봉사의 성원들은, 반영 영들과 장엄자는 제외하고, 모두가 무한한 영 그리고 그의 즉각적인 연관-동료들과 종속들의 창조체들이다. 각 초우주의 반영 영들은 그들의 반영 영상 도움자,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그들의 개인적 음성

will possess unimagined powers of enhanced universe co-ordination. There would seem to be no limit to the Deity Absolute's potential of response to such unific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tial Deity and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3. THE REFLECTIVE SPIRITS

17:3.1 (200.5)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re of Trinity origin, but each of the seven creative episodes attendant upon their appearance was productive of a type of being in nature resemb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ncestral Master Spirit. Thus they variously reflect the natures and characters of the seven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association of the divinity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have seven of these Reflective Spirit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One of each of the seven types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the perfect reflection of all phases of every possible manifest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s such phenomena might occur in any par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ne of each type was accordingly assigned to service in each of the superuniverses. These groups of seven dissimilar Reflective Spirits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at the reflective focus of each realm, and this is not identical with the point of spiritual polarity.

17:3.2 (200.6) The Reflective Spirits have names, but these designations are not revealed on the worlds of space. They pertain t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se beings and are a part of one of the seven universal mysteries of the secret spheres of Paradise.

17:3.3 (201.1) The attribute of reflectivity, the phenomenon of the mind levels of the Conjoint Actor, the Supreme Being, and the Master Spirits, is transmissible to all beings concerned in the working of this vast scheme of universal intelligence. And herein is a great mystery: Neither the Master Spirits nor the Paradise Deities, singly or collectively, disclose these powers of co-ordinate universal reflectivity just as they are manifested in these forty-nine liaison personalities of Majeston, and yet they are the creators of all these marvelously endowed beings. Divine heredity does sometimes disclose in the creature certain attributes which are not discernible in the Creator.

17:3.4 (201.2) The personnel of the reflectivity service, with the exception of Majeston and the Reflective Spirits, are all the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his immediate associates and subordinates. The Reflective Spirits of each superuniverse are the creators of their Reflective

들의 창조자이다.

반영 영들은 단순히 전달하는 대리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잘 간직하는 개인성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자손, 2품천사들 역시 보존 또는 기록하는 개인성들이다. 참된 영적 가치의 모든 것은 중복으로 등록되며, 한 부는 반영 영들의 광대한 직원에 속하는 2품천사 개인성들의 수많은 계층들 중 하나에 있는 몇몇 구성원의 개인성 장치 속에 보관된다.

우주들의 공식 기록은 천사 기록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달되지만, 참된 영적 기록들은 반영에 의해 수집되고, 무한한 영의 가족에 속하는 적당하고도 알맞은 개인성들의 마음속에 보존된다. 이것들은 우주의 형식적인 그리고 죽은 기록들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기록들이며, 그것들은 무한한 영의 기록하는 개인성들의 살아있는 마음속 속에 완전하게 보존된다.

반영 조직은 또한 모든 창조의 소식-수집 그리고 명령-배포 기능구조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들의 주기적 기능과는 대조적으로 부단하게 운영된다.

지역우주 본부에서 나오는 중요한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그것의 초우주의 본부에 반영된다. 그리고 거꾸로, 지역우주 의의(意義)에 대한 모든 것은 그들의 초우주 본부로부터 지역우주 수도를 향해 밖으로 반영된다. 초우주들을 향해 상승하는 시간 우주들로부터의 반영 봉사는 겉으로 보기에 자동적이거나 또는 자아-작동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두 매우 개인적이고 지능적이다; 그 정확성은 개인성 협동의 완전에서 오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자들의 미(未)개인적 현존-행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가 없다.

생각 조절자들이 우주 반영체계의 작동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모든 아버지 단편들이 이들 활동행위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의 내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각각의 이유를 갖고 있다.

현 우주 시대 동안 가외(加外)-파라다이스 반영 봉사의 공간 범위는 일곱 초우주들의 가장자리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봉사의 기능이 시간과 공간에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하위-절대 우주 순환회로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각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조직 활동들은 분리된 단위로 활동한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장엄자의 지도에 따라,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1,000 년마다 인사를 나누는 때에 그리고 빛과 생명 안에 전체 지역우주가 정착됨에 따라 벌어지는 축제

Image Aids, their personal voices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17.3.5 (201.3) The Reflective Spirits are not merely transmitting agents; they are retentive personalities as well. Their offspring, the seconaphim, are also retentive or record personalities. Everything of true spiritual value is registered in duplicate, and one impression is preserved in the personal equipment of some member of one of the numerous orders of secoraphic personalities belonging to the vast staff of the Reflective Spirits.

17.3.6 (201.4) The formal records of the universes are passed up by and through the angelic recorders, but the true spiritual records are assembled by reflectivity and are preserved in the minds of suitable and appropriate personalities belonging to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se are the *live* records in contrast with the formal and *dead* records of the universe, and they are perfectly preserved in the living minds of the recording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17.3.7 (201.5) The reflectivity organization is also the news-gathering and the decree-disseminating mechanism of all creation. It is in constant operation in contrast with the periodic functioning of the various broadcast services.

17.3.8 (201.6) Everything of import transpiring on a local universe headquarters is inherently reflected to the capital of its superuniverse. And conversely, everything of local universe significance is reflected outward to the local universe capitals from the headquarters of their superuniverse. The reflectivity service from the universes of time up to the superuniverses is apparently automatic or self-operating, but it is not. It is all very personal and intelligent; its precision results from perfection of personality co-operation and therefore can hardly be attributed to the impersonal presence-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17.3.9 (201.7) While Thought Adjusters do not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al reflectivity system,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all Father fragments are fully cognizant of these transactions and are 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ir content.

17.3.10 (201.8)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pace range of the extra-Paradise reflectivity service seems to be limited by the peripher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therwise, the function of this service seems to b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It appears to be independent of all known subabsolute universe circuits.

17.3.11 (201.9)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 reflective organization acts as a segregated unit; but on certain special occasions, under the direction of Majeston, all seven may and do act in universal unison, as in the event of the

절기에서처럼, 일곱 전체는 우주적 일치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제 4 장. 반영 영상 도움자

49명의 반영 영상 도움자들은 반영 영들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각 초우주에는 정확하게 일곱 명의 도움자들이 있다. 유버사의 일곱 반영 영들의 첫 번째 창조활동은 그들의 일곱 영상 도움자들을 생산하는 것이었고, 각 반영 영은 자기 자신의 도움자를 창조하였다. 영상 도움자들은, 일정한 속성과 특징에서, 그들의 창조 어머니 영들의 완전한 재현들이다; 그들은 반영이라는 속성이 빠진 실질적 복제들이다. 그들은 참된 영상들이며 반영 영들과 초우주 당국 사이의 통신하는 통로로서 끊임없이 기능한다. 영상 도움자들은 단순한 보좌관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영하는 영 조상들의 실제적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영상들이며, 그들 이름과 참으로 맞는다.

반영 영들 자신은 참된 개인성들이지만 물질적 존재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계층에 속한다. 또한 초우주 본부 구체에서도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과의 모든 개인적 교감에서 그들의 영상 도움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상 도움자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접촉에서, 때로는 한 명의 도움자가 알맞게 기능하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전송으로 위임된 통신의 충만한 그리고 적절한 제시를 위해 둘, 셋, 넷 또는 심지어 일곱 명 전체가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영상 도움자들의 메시지들은 통신의 내용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 둘, 또는 세분 모두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받아들여진다.

영상 도움자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조상이 되는 영들 옆에서 봉사하며, 그들은 그들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조력자 2 품천사 무리를 갖고 있다. 영상 도움자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훈련 세계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 진보의 우주적 기획의 지능적 봉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너희는 너희가 유버사 학교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개인적 존재들로 보이는 이 존재들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택의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 개별 영 조상의 개인성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참된 영상들이다. 한 계급으로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반영과 친밀하게 접촉하지 않는다. 항상 반영적 본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너희와 그 봉사의 실제작용 사이에 끼어있게 될 것이다.

jubilee occasioned by the settling of an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and at the times of the millennial greeting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4. THE REFLECTIVE IMAGE AIDS

17.4.1 (202.1) The forty-nine Reflective Image Aids were created by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re are just seven Aid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 first creative act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of Uversa was the production of their seven Image Aids, each Reflective Spirit creating his own Aid. The Image Aids are, in certain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perfect reproductions of their Reflective Mother Spirits; they are virtual duplications minus the attribute of reflectivity. They are true images and constantly function as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 superuniverse authorities. The Image Aids are not merely assistants; they are actual representations of their respective Spirit ancestors; they are *images*, and they are true to their name.

17.4.2 (202.2) The Reflective Spirits themselves are true personalities but of such an order as to be incomprehensible to material beings. Even on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sphere they require the assistance of their Image Aids in all personal intercourse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In contacts between the Image Aids and the Ancients of Days, sometimes one Aid functions acceptably, while on other occasions two, three, four, or even all seven are required for the full and proper presentation of the communication intrusted to their transmission. Likewise, the messages of the Image Aids are variously received by one, two, or all three Ancients of Days, as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may require.

17.4.3 (202.3) The Image Aids serve forever by the sides of their ancestral Spirits, and they have at their disposal an unbelievable host of helper seconaphim. The Image Aids do not directly function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worlds of ascending mortals.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intelligence service of the universal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but you will not personally come in contact with them when you sojourn in the Uversa schools because these seemingly personal beings are devoid of will; they do not exercise the power of choice. They are true images, wholly reflective of the personality and mind of the individual Spirit ancestor. As a class, ascending mortals do not intimately contact with reflectivity. Always some being of the reflective nature will be interposed between you a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ervice.

제 5 장. 순환회로의 일곱 영

하보나 순환회로 일곱 영은 중앙우주의 일곱 순환회로에 대한 무한한 영과 일곱 주(主) 영들의 미(未)개인적 공동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주(主) 영들의 하인이자, 그들은 그들의 집단적 자손들이다. 주(主) 영들은 일곱 초우주들에 뚜렷하고도 다양하게 하는 행정·관리적 개별성을 제공한다. 하보나 순환회로의 이들 균일한 영들을 통하여 그들은 중앙우주에 관한 통합되고, 균일 되고, 그리고 조화·협동된 영적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순환회로 일곱 영은 각각 단일 하보나 순환회로에 스며드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 이, 개별 하보나 세계들의 통치자들의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과 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최극존재의 중앙우주 현존과 동조한다. 그들의 일은 전적으로 하보나에 국한된다.

이들 순환회로의 영들은 그들의 개인적 자손, 3차 초(超)천사를 통하여, 하보나에 머물고 있는 자들과의 접촉을 가진다. 순환회로 영들이 일곱 주(主) 영들과 공존하는 동안, 3차 초(超)천사의 창조에서의 그들의 기능은 시간의 첫 순례자들이 그랜드판다의 시대에 하보나의 외부 순환회로에 도착할 때까지 큰 중요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너희가 하보나에서 한 순환회로에서 다음 순환회로로 전진함에 따라, 너희는 순환회로들의 영들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설사 너희가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즐기고, 그 미(未)개인적 현존을 인식한다 해도, 너희는 그들과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순환회로 영들은 생각 조절자들이 진화적 우주들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필사 창조체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하보나의 원주민 거주자들과 관계되어 있다. 생각 조절자들처럼, 순환회로 영들은 미(未)개인적이며,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미(未)개인적 영들이 필사 사람들의 유한 마음에 깃드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하보나 존재들의 완전 마음들과 교제한다. 그러나 순환회로들의 영들은 결코 하보나 개인성들의 영원한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제 6 장. 지역우주 창조 영

지역우주 창조 영들의 본성과 기능에 관한 많은 것은 지역 창조체들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들과의 그들의 관계적·연합에 관한 이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17:5.1 (202.4)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are the joint impersona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to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servants of the Master Spirits, whose collective offspring they are. The Master Spirits provide a distinct and diversified administrative individuality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hrough these uniform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they are enabled to provide a unified, uniform, and co-ordinated spiritual supervision for the central universe.

17:5.2 (202.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are each limited to the permeation of a single Havona circuit. They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regimes of the Eternals of Days, the rulers of the individual Havona worlds. But they are in liaison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synchronize with the central universe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Their work is wholly confined to Havona.

17:5.3 (203.1) These Spirits of the Circuits make contact with those who sojourn in Havona through their personal offspring, the tertiary supernaphim. While the Circuit Spirits are coexistent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their function in the creation of tertiary supernaphim did not attain major importance until the first pilgrims of time arrived on the outer circuit of Havona in the days of Grandfanda.

17:5.4 (203.2) As you advance from circuit to circuit in Havona, you will learn of the Spirits of the Circuits, but you will not be able to hold personal communion with them, even though you may personally enjoy, and recognize the impersonal presence of, their spiritual influence.

17:5.5 (203.3) The Circuit Spirits are related to the native inhabitants of Havona much as the Thought Adjusters are related to the mortal creatures inhabiting the world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Like the Thought Adjusters, the Circuit Spirits are impersonal, and they consort with the perfect minds of Havona beings much as the impersonal spirits of the Universal Father indwell the finite minds of mortal men. But the Spirits of the Circuits never become a permanent part of Havona personalities.

6.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17:6.1 (203.4) Much that pertains to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properly belongs to the narrative of their

야기에 잘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일곱 최극 영 집단들에 대한 이 설명의 부분으로서 이야기될, 이 놀라운 존재들의 지역우주-이전(以前) 체험들의 특징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의 여섯 위상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일곱 번째 활동 단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이 추측한다. 실존(實在)의 서로 다른 이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파라다이스 분화. 창조자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활동에 의해 개인성구현될 때,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는 “최극 보완 반응”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공동 창조자의 창조 잠재 안에 포용된 개인성구현할 가능성들에 대한 선천적 변경을 뜻하는 것은 남득하고 있다. 조화-협동 창조자 아들의 탄생은 이 파라다이스 아들의 미래 지역우주 배우자가 될 잠재가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 탄생함을 뜻한다. 우리는 실존개체의 이 새로운 전(前)개인적 정체화구현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러한 창조자 아들의 생애에 대한 파라다이스 기록들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비적 창조자관계 훈련. 우주들의 조직과 관리-행정에 있어서 미가엘 아들의 예비적 훈련의 긴 기간 동안, 그의 미래 배우자는 더욱 나아가며 실존개체의 발전과 운명의 집단인식을 겪는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집단-의식의 실존개체가 공간 인식을 시작하고 우주 창조와 관리-행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가엘과 협동하는 그녀의 미래 활동에서의 영 기술 습득에 필수인 예비훈련을 시작한다고 추측한다.

3. 물리적 창조 단계. 창조자신분 책임이 영원한 아들에 의해 미가엘 아들에게 부과될 때, 이 새로운 창조자 아들이 운명되어진 초우주를 지도하는 주(主) 영은, 무한한 영의 현존 안에서 “정체화구현의 기도(祈禱)”에 대한 표현을 내 놓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이어지는 창조 영의 실존개체가 무한한 영의 개인으로부터 차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원하는 주(主) 영의 개인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실존개체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이 주(主) 영 개인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의 모험을 위해 창조자 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새롭게 정체성이 확인된 창조 영은 주(主) 영과 함께 남아 있다; 거기에서 주(主) 영은 창조자 아들의 보호에 새로운 영(靈) 배우자를 위탁하며, 그와 동시에 영 배우자에게 영원한 충성과 끝없는 복종을 책임 지운다. 그리고 나서 파라다이스에서 있었던 가장 심오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발생된다. 우주

association with the Creator Sons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creations; but there are many features of the prelocal universe experiences of these marvelous beings which may be narrated as a part of this discussion of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17:6.2 (203.5) We are conversant with six phases of the career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we speculate much concerning the probability of a seventh stage of activity. These different stages of existence are:

17:6.3 (203.6) 1. *Initial Paradise Differentiation.* When a Creator Son is personalized by the joint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simultaneously there occurs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what is known as the “supreme reaction of complement.” We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is reaction, but we understand that it designates an inherent modification of those personalizable possibilities which are embraced within the creative potential of the Conjoint Creator. The birth of a co-ordinate Creator Son signals the birth with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potential of the future local universe consort of this Paradise Son. We are not cognizant of this new prepersonal identification of entity, but we know that this fact finds place on the Paradise records of the career of such a Creator Son.

17:6.4 (203.7) 2. *Preliminary Creatorship Training.* During the long period of the preliminary training of a Michael Son in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universes, his future consort undergoes further development of entity and becomes group conscious of destiny. We do not know, but we suspect that such a group-conscious entity becomes space cognizant and begins that preliminary training requisite to the acquirement of spirit skill in her future work of collaboration with the complemental Michael in universe creation and administration.

17:6.5 (204.1) 3. *The Stage of Physical Creation.* At the time the creatorship charge is administered to a Michael Son by the Eternal Son, the Master Spirit who directs the superuniverse to which this new Creator Son is destined gives expression to the “prayer of identification” in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and for the first time, the entity of the subsequent Creative Spirit appears as differentiated from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proceeding directly to the person of the petitioning Master Spirit, this entity is immediately lost to our recognition, becoming apparently a part of the person of this Master Spirit. The newly identified Creative Spirit remains with the Master Spirit until the moment of the departure of the Creator Son for the adventure of space; whereupon the Master Spirit commits the new Spirit consort to the keeping of the Creator Son, at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영원한 연합을 인정하는 그리고 초우주 사법권의 주(主) 영에 의한 관리-행정의 어떤 공동 힘의 증여(贈與)를 확인하는 말씀을 한다.

아버지-결합 창조자 아들 그리고 창조 영은 다음에 그들의 우주 창조 모험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우주의 물질적 조직화의 길고도 벅찬 기간에 두루 관계적-연합된 이 형태에서 함께 일한다.

4. 생명-창조 시대. 창조자 아들에 의해 생명 창조 의지가 선포됨에 따라, 파라다이스에서는 일곱 주(主) 영들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그리고 감독하는 주(主) 영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개인성구현 예식”이 뒤 따른다. 이것은 창조자 아들의 영 배우자의 개별존재성에 대한 파라다이스 신(神)의 공여이며 무한한 영의 개인 안에서의 “1차 분출” 현상으로 우주에 현시하게 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이 현상과 동시에, 지금까지 미(未)개인적이었던 창조자 아들의 영 배우자는 모든 실천적 의도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진실한 개인이 된다. 앞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늘, 바로 이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개인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어지는 생명 창조의 모든 개인성 무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5. 증여-이후 시대.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 이후에 그리고 그의 충만한 우주 주관 성취 이후에 우주 본부로 돌아올 때, 창조 영의 결코-끝남없는 생애에는 또 다른 그리고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 모인 우주의 관리행정자들 앞에서, 승리한 창조자 아들은 우주 어머니 영을 공동주권으로 상승시키고 영 배우자가 자신과 동등함을 인정한다.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수립됨에 따라 우주 공동주권은 창조 영 생애의 여섯 번째 위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체험의 본성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네바돈 안에서의 진화의 미래단계에 어울린다.

7. 계시되지 않은 생애. 우리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 생애의 이러한 여섯 위상들을 알고 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 일곱 번째 생애가 있는가? 우리는 최종자가 필사자 상승에서 그들의 마지막 운명으로 되도록 출현되는 것을 달성할 때, 그들이 여섯 번째 단계의 영 생애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

the same time administering to the Spirit consort the charge of eternal fidelity and unending loyalty. And then occurs one of the most profoundly touching episodes which ever take place on Paradise. The Universal Father speaks in acknowledgment of the eternal unio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and in confirmation of the bestowal of certain joint powers of administration by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17:6.6 (204.2) The Father-united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then go forth on their adventure of universe creation. And they work together in this form of association throughout the long and arduous period of the material organization of their universe.

17:6.7 (204.3) 4. *The Life-Creation Era.* Up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create life by the Creator Son, there ensue on Paradise the “personalization ceremonies,” participated in by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personally experienced by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This is a Paradise Deity contribution to the individuality of the Spirit consort of the Creator Son and becomes manifest to the universe in the phenomenon of “the primary eruption” in the person of the Infinite Spirit. Simultaneously with this phenomenon on Paradise, the heretofore impersonal Spirit consort of the Creator Son become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a bona fide person. Henceforth and forevermore, this sam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will be regarded as a person and will maintain personal relations with all the personality hosts of the ensuing life creation.

17:6.8 (204.4) 5. *The Postbestowal Ages.* Another and great change occurs in the never-ending career of a Creative Spirit when the Creator Son returns to universe headquarters after the completion of his seventh bestowal and subsequent to his acquirement of full universe sovereignty. On that occasion, before the assembled administrators of the universe, the triumphant Creator Son elevates the Universe Mother Spirit to cosovereignty and acknowledges the Spirit consort as his equal.

17:6.9 (204.5) 6. *The Ages of Light and Life.*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 local universe cosovereign enters upon the sixth phase of a Creative Spirit's career. But we may not portray the nature of this great experience. Such things pertain to a future stage of evolution in Nebadon.

17:6.10 (204.6) 7. *The Unrevealed Career.* We know of these six phases of the career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sk: Is there a seventh career? We are mindful that, when finaliters attain what appears to be their final destiny of mortal ascension, they are of record as entering upon the career of sixth-

리는 최종자가 우주 임무에 있어서 또 다른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생애를 기다릴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주 어머니 영들이 창조자 미가엘들의 계층과 함께 우주봉사와 충성스러운 협동으로 개인적 체험에서 그들의 일곱 번째 위상을 구성하게 될 어떤 발견되지 않은 생애를 그들 앞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는 것이 단지 예상되어지는 것이다.

제 7 장. 보조 마음-영

이들 보조 영들은 창조자 아들과 그러한 창조 영의 공동 창조한, 그 창조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창조체들에 대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칠중 마음 증여이다. 이 증여 행위는 영이 개인성 특권들을 가지는 지위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가능하게 된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기능과 본성에 대한 설명은, 너희의 네바돈 지역우주에 관한 이야기에 속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제 8 장. 최극 영들의 기능

최극 영들의 일곱 집단은, 무한한 영으로 그리고 공동 행위자 둘 모두로서 기능하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적 가족의 핵을 구성한다. 최극 영들의 권역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삼위일체의 현존으로부터 우주의 행성들에서의 진화적-필사 계층의 마음기능에 이르기까지 뻗쳐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강하는 행정-관리적 차원들을 통합하고 그곳에서의 성원들의 다중 기능들을 조화-협동한다. 그것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연락하는 반영 영 집단, 미가엘 아들과 협조하는 창조 영이든지, 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주변을 도는 일곱 주(主) 영들이든지 간에, 최극 영들의 활동은 중앙, 초- 그리고 지역우주 어디서든지 마주치게 된다. 그들은 “늘 계신이들”의 계층의 삼위일체 개인성들과 그리고 “아들들”의 계층의 파라다이스 개인성들과 똑같이 기능한다.

최극 영 집단들은 그들의 무한 어머니 영과 함께,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광대한 창조체 가족의 직접적 창조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돌보는 영들은 이 관계적-연합으로부터 나온다. 1차 초(超)천사는 무한한 영에서 기원된다; 이 계층의 2차 존재들은 주(主) 영들에 의해 창조된다; 3차 초(超)천사는 순환회로 일곱 영에 의해 창조된다. 반영 영들은, 집단적으로, 천사 무리라는 놀라운 계층, 초우주 봉사의 막강한 2품천사의 어머니인-만드신 이들이다. 창조 영은 지역 창조의 천사 계층의 어머니이다; 그러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이 중앙우주의 원형들을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각 지역우주에서는 기원적이다. 돌보는 영들의 이 모든 창조자들은 무한한 영, 모든 천사 사명활동자들의

stage spirits. We conjecture that there awaits the finalizers still another and unrevealed career in universe assignment. It is only to be expected that we would likewise regard the Universe Mother Spirits as having ahead of them some undisclosed career which will constitute their seventh phase of personal experience in universe service and loyal co-operation with the order of the Creator Michaels.

7. THE ADJUTANT MIND-SPIRITS

17:7.1 (205.1) These adjutant spirits are the sevenfold mind bestowal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upon the living creatures of the conjoint creation of a Creator Son and such a Creative Spirit. This bestowal becomes possible at the time of the Spirit's elevation to the status of personality prerogatives. The narration of the nature and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belongs more appropriately to the story of your local universe of Nebadon.

8. FUNCTIONS OF THE SUPREME SPIRITS

17:8.1 (205.2) The seven groups of Supreme Spirits constitute the nucleus of the functional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oth as the Infinite Spirit and as the Conjoint Actor. The domain of the Supreme Spirits extends from the presence of the Trinity on Paradise to the functioning of mind of the evolutionary-mortal order on the planets of space. Thus do they unify the descending administrative levels and co-ordinate the manifold functions of the personnel thereof. Whether it is a Reflective Spirit group in liaison with the Ancients of Days, a Creative Spirit acting in concert with a Michael Son, or the Seven Master Spirits encircuited around the Paradise Trinity, the activity of the Supreme Spirits is encountered everywhere in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They function alike with the Trinity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Days” and with the Paradise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Sons.”

17:8.2 (205.3) Together with their Infinite Mother Spirit, the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immediate creators of the vast creature famil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ll orders of the ministering spirits spring from this association. Primary supernaphim originate in the Infinite Spirit; secondary beings of this order are created by the Master Spirits; tertiary supernaphim by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The Reflective Spirits, collectively, are the mother-makers of a marvelous order of the angelic hosts, the mighty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 services. A Creative Spirit is the mother of the angelic orders of a local creation; such seraphic ministers are original in each local

기원적이고도 영원한 어머니의 중앙거점에 의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얻을 뿐이다.

일곱 최극 영 집단들은 거주민이 사는 창조의 조화-협동자들이다. 그들을 지도하는 우두머리들, 일곱 주(主) 영들의 관계적-연합은 칠중 하느님의 멀리-퍼지는 활동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집단적으로, 주(主) 영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삼위일체의 신성 차원에 거의-동등하다.

2. 개별적으로, 그들은 삼원적 신(神)의 시원적 연관 가능성들을 다 소모시킨다.

3. 공동 행위자의 다양한 대표자로서, 그들은 최극존재의, 그가 아직 친히 행사하지 않은, 영-마음-힘 주권의 저장소이다.

4. 반영 영들을 통하여, 그들은 우주적 반영의 파라다이스 중심인 장엄자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초우주 정부를 동조(同調)시킨다.

5. 지역우주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개별존재성구현에서의 그들의 참여에서, 주(主) 영들은 칠중 하느님의 마지막 차원,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창조 영 연합에 기여한다.

공동 행위자 안에 선천적인 기능적 합일은, 일곱 주(主) 영들, 그의 1차 개인성들 안에서 진화하는 우주에 드러난다. 그러나 미래의 완전하게 된 초우주들에서는 이 합일이 의심할 여지없이 최극자의 체험적 주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universe, though they are fashioned after the patterns of the central universe. All these creators of ministering spirits are only indirectly assisted by the central lodgment of the Infinite Spirit, the original and eternal mother of all the angelic ministers.

17:8.3 (205.4) The seven Supreme Spirit groups are the co-ordinators of the inhabited creation. The association of their directing heads, the Seven Master Spirits, appears to co-ordinate the far-flung activities of God the Sevenfold:

17:8.4 (205.5) 1. Collectively the Master Spirits near-equivalate to the divinity level of the Trinity of Paradise Deities.

17:8.5 (205.6) 2. Individually they exhaust the primary associable possibilities of triune Deity.

17:8.6 (206.1) 3. As diversified representatives of the Conjoint Actor they are the repositories of that spirit-mind-power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which he does not yet personally exercise.

17:8.7 (206.2) 4. Through the Reflective Spirits they synchronize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Majeston, the Paradise center of universal reflectivity.

17:8.8 (206.3) 5. In their participation in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local universe Divine Ministers, the Master Spirits contribute to the last level of God the Sevenfold, the Creator Son-Creative Spirit union of the local universes.

17:8.9 (206.4) Functional unity, inherent in the Conjoint Actor, is disclosed to the evolving universe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his primary personalities. But in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of the future this unity will undoubtedly be inseparable from the experienti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17:8.10 (206.5)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18 편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

⇨ 017

유랜시아 책

019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8 편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

섹션

소개

- 제 1 장.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제 2 장. 영원으로 늘 계신이
 제 3 장. 옛적으로 늘 계신이
 제 4 장. 완전으로 늘 계신이
 제 5 장.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제 6 장. 연합으로 늘 계신이
 제 7 장. 충심으로 늘 계신이

소개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모두 특별한 봉사를 위해 창조된다. 그들은 어떤 특정 임무의 실행 완료를 위해 신성한 삼위일체에 의해 고안되며, 그들은 기법의 완전과 헌신의 최종으로 봉사하도록 분별화된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에는 일곱 계층들이 있다: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행정-관리적으로 완전인 이 존재들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숫자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다; 더 이상 개인성구현되지 않는다.

PAPER 18

TH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2. The Eternals of Days
3. The Ancients of Days
4. The Perfections of Days
5. The Recents of Days
6. The Unions of Days
7. The Faithfuls of Days

INTRODUCTION

18:0.1 (207.1)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are all created for specific service. They are designed by the divine Trinity for the fulfillment of certain specific duties, and they are qualified to serve with perfection of technique and finality of devotion. There are seven orders of th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 18:0.2 (207.2)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 18:0.3 (207.3) 2. Eternals of Days.
- 18:0.4 (207.4) 3. Ancients of Days.
- 18:0.5 (207.5) 4. Perfections of Days.
- 18:0.6 (207.6) 5. Recents of Days.
- 18:0.7 (207.7) 6. Unions of Days.
- 18:0.8 (207.8) 7. Faithfuls of Days.

18:0.9 (207.9) These beings of administrative perfection are of definite and final numbers. Their creation is a past event; no more are being personalized.

대우주에 두루 이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행정-관리적 정책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공의(公義)를 대표하고 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집행적 심판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구체들로부터 지역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구성 요소 별자리의 수도에 이르는 행정-관리적 완전의 밀접한 계통을 형성한다.

모든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모든 그들의 신성한 속성들에서 파라다이스 완전으로 창조된다. 체험의 영역에서 오직 시간의 흐름만이 조화우주 봉사를 위한 그들의 장치에 추가되어진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에게는 불이행의 위험 또는 반역의 위험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성 요소에 속하며, 개인성 행위의 신성하고도 완전한 경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제 1 장.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가장 안쪽 순환회로에는 일곱 세계들이 있고, 고양된 이 세계들 각각은 10명의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로 구성된 무리단에 의해 주관된다. 그들은 창조자들은 아니지만, 최극이고 궁극인 행정-관리자들이다. 이 일곱 형제우에 구체들의 관련사에 대한 처리행위는 70명의 이 최극 지도자 무리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삼위일체의 자녀가 파라다이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성한 일곱 구체들을 감독하지만, 이 집단의 세계들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은 그들의 반영하는 구체에 대한 조화-협동 그리고 공동의 지도자들로서 10개의 집단들을 이루어 기능하지만, 또한 그들은 특정 책임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들 특별 세계 각각의 활동은 일곱 주요 부분들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조화-협동 통치자 중 하나가 특화된 활동들의 그러한 각 분야를 주관한다.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일곱 명과 갖는 관계에서, 삼원적 신(神)의 개인적 대표자로서, 하나는 아버지를, 또 하나는 아들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을 대표하면서, 활동한다.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들을 상징하는 분명한 등급 유사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일곱 개의 뚜렷한 집단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성별 관련사의 10분 최극 지도자들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성격과 본성을 반영한다; 이 일곱 구체들 각각도 그와 같다: 10명의 각 집단은 그들의 권역의 특징인 그 신(神) 또는 신(神) 관계적-연합을 닮는다. 상승자별을 통치하는 10명의 지도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병합된 본성을 반영한다.

18:0.10 (207.10)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se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represent the administrative policies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represent the justice and are the executive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form an interrelated line of administrative perfection extending from the Paradise spheres of the Father to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o the capitals of their component constellations.

18:0.11 (207.11) All Trinity-origin beings are created in Paradise perfection in all their divine attributes. Only in the realms of experience has the passing of time added to their equipment for cosmic service. There is never any danger of default or risk of rebellion with Trinity-origin beings. They are of divinity essence, and they have never been known to depart from the divine and perfect path of personality conduct.

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18:1.1 (207.5) There are seven worlds in the innermost circuit of the Paradise satellites, and each of these exalted worlds is presided over by a corps of ten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y are not creators, but they are supreme and ultimate administrators.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se seven fraternal spheres is wholly committed to this corps of seventy supreme directors. Though the offspring of the Trinity supervise these seven sacred spheres nearest Paradise, this group of worlds is universally known as the personal circuit of the Universal Father.

18:1.2 (208.1)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function in groups of ten as co-ordinate and joint directors of their respective spheres, but they also function individually in particular fields of responsibility. The work of each of these special worlds is divided into seven major departments, and one of these co-ordinate rulers presides over each such division of specialized activities. The remaining three act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riune Deity in relation to the other seven, one representing the Father, one the Son, and one the Spirit.

18:1.3 (208.2) Although there is a definite class resemblance which typifies the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they also disclose seven distinct group characteristics. The ten supreme directors of Divinington affairs are reflective of the personal character and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o it is with each of these seven spheres: Each group of ten resembles that Deity or Deity associa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ir domain. The ten directors who rule Ascendington are reflective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Father,

나는 아버지의 신성한 일곱 세계들에 있는 이 높은 개인성들의 활동에 대하여 거의 계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최극위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우주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 또는 무한한 영에게 접근하는 것과 연관된 독단적인 비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神)들은 신성한 완전을 달성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과 같지만, 최극위의 비밀들 모두는 결코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창조된 존재들의 칠중 집단화와 관련하는 신(神) 관계적-연합체의 개인성 비밀들을 담고 있는 영역으로 충분하게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특별한 일곱 세계들에 거주하였을 때 또는 대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동안, 우주 존재들의 기본적인 이 일곱 집단화들과 신(神)들의 긴밀하고도 개인적인 접촉에 이 최극 지도자들의 활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인적 관계들과 비범한 접촉들이 신성시되는 비밀스러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은 심지어 그들의 비천한 창조체들 안에 있는 개인성의 사적(私的) 자유와 존엄성까지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존재들이나 개인성들의 다양한 독립된 계층 모두에게 진정이다.

심지어 높은 우주 달성을 이룩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 비밀 세계들은 충성심에 대한 시험으로 계속 남아 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느님들을 아는 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성과 완전의 그들의 성격을 아는 것이 자유로이 주어졌지만, 파라다이스 통치자들과 그들의 창조체 존재들 모두와 맺는 개인적 관계 모두를 간파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허락되지 않는다.

제 2 장. 영원으로 늘 계신이

하보나의 10억 세계들 각각은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에 의해 지도된다. 이 통치자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10억 인데, 하보나 구체 각각에 대해 한 명씩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이지만, 최극위의 비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원에 관한 기록이 없다. 모든-지혜이신 아버지들의 이 두 집단들이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 속한 그들의 매우 아름다운 세계들을 언제까지나 통치해 왔으며, 그들은 교대 또는 재배치되는 일이 없이 기능한다.

영원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권역에 거주하는 모든 의지 창조체의 눈에 보인다. 그들은 규칙적인 행성 비밀회의들을 주관한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교대로,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을 방문한다. 그들은, 일곱 초(超)정부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친족관계로 가깝고 신성한 동등이다. 영원으로 늘 계신이가 자신의 구체에서 자리를 비울 때, 그의 세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지도를 받는다.

Son, and Spirit.

18:1.4 (208.3) I can reveal very little about the work of these high personalities on the seven sacred worlds of the Father, for they are truly the *Secrets of Supremacy*. There are no arbitrary secrets associated with th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or the Infinite Spirit. The Deities are an open book to all who attain divine perfection, but all the *Secrets of Supremacy* can never be fully attained. Always will we be unable fully to penetrate the realms containing the personality secrets of Deity association with the sevenfold grouping of created beings.

18:1.5 (208.4) Since the work of these supreme directors has to do with the intimate and personal contact of the Deities with these seven basic groupings of universe beings when domiciled on these seven special worlds or while functioning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t is fitting that these very personal relations and extraordinary contacts should be held sacredly secret. The Paradise Creators respect the privacy and sanctity of personality even in their lowly creatures. And this is true both of individuals and of the various separate orders of personalities.

18:1.6 (208.5) To beings of even high universe attainment these secret worlds ever remain a test of loyalty. It is given us fully and personally to know the eternal Gods, freely to know their characters of divinity and perfection, but it is not granted us fully to penetrate all of the personal relations of the Paradise Rulers with all of their creature beings.

2. THE ETERNALS OF DAYS

18:2.1 (208.6) Each of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is directed by a Supreme Trinity Personality. These rulers are known as the *Eternals of Days*, and they number exactly one billion, one for each of the Havona spheres. They are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but like the *Secrets of Supremacy* there are no records of their origin. Forever have these two groups of all-wise fathers ruled their exquisite world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and they function without rotation or reassignment.

18:2.2 (208.7) The *Eternals of Days* are visible to all will creatures dwelling in their domains. They preside over the regular planetary conclaves. Periodically, and by rotation, they visit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close of kin to, and are the divine equals of, the *Ancients of Days*,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governments. When an *Eternal of Days* is absent from his sphere, his world is directed by a Trinity Teacher Son.

하보나 원주민들과 그 중앙우주의 살아있는 다른 창조체들 등과 같은, 확립된 계층의 창조체의 경우는 제외하고,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 이는 한결같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 관념과 이상에 따라 그들 각자의 구체들을 개발해 왔다. 그들은 서로의 행성들을 방문하지만, 복사하거나 모방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기원적이다.

고안건축물, 자연적 장식물, 모론시아 구조물들, 그리고 영 창조체들은 각 구체마다 배타적이고 독특하다. 각각의 세계는 영속하는 아름다운 곳이고 중앙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세계와도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너희는 하보나를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너희 길을 가면서 이 독특하고 장렬한 구체들 각각에서 비교적 길거나 짧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파라다이스를 위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신성한 상승 목표에 대해 안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제 3 장. 옛적으로 늘 계신 이

지역우주의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훈련세계들로부터 필사자들이 졸업하고 그들의 초우주의 교육구체들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영적 발전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포함하여, 이들 전진한 영역들의 높은 영적 통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들이 알아보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지점까지 이미 진보한 것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병합된 성격과 통합된 본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개별존재성을 소유하고 개인성에서 다양하지만, 일곱 주(主) 영의 경우처럼 서로 다르지는 않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각각이 뚜렷하고 분리되고 독특한 창조, 각기 다른 일곱 초우주들에게 균일한 지도력을 제공한다. 일곱 주(主) 영들은 본성과 속성에 있어서 다르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들, 초우주들의 개인적 통치자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균일한 그리고 초(超)완전의 자손이다.

높은 곳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 각자의 초우주들의 본성을 결정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동일한 이 초우주들에 대한 관리-행정을 명령한다. 그들은 창조적 다양성에 관리-행정적 확일성을 첨부시키고 대우주의 일곱 부분 집단화들의 근원을 이루는 창조적 차이들 앞에 전체의 조화를 보장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모두 동시에 삼위일체화 되었다.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개인성 기록들의 시작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18:2.3 (209.1) Except for the established orders of life, such as the Havona natives and other living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the resident Eternals of Days have developed their respective spheres entirely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personal ideas and ideals. They visit each other's planets, but they do not copy or imitate; they are always and wholly original.

18:2.4 (209.2) The architecture, natural embellishment, morontia structures, and spirit creations are exclusive and unique on each sphere. Every world is a place of everlasting beauty and is wholly unlike any other world in the central universe. And you will each spend a longer or shorter time on each of these unique and thrilling spheres on your way inward through Havona to Paradise. It is natural, on your world, to speak of Paradise as *upward*, but it would be more correct to refer to the divine goal of ascension as *inward*.

3. THE ANCIENTS OF DAYS

18:3.1 (209.3) When mortals of time graduate from the training worlds surrounding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and are advanced to the educational spheres of their superuniverse, they have progressed in spiritual development to that point where they are able to recognize and communicate with the high spiritual rulers and directors of these advanced realms, including the Ancients of Days.

18:3.2 (209.4) The Ancients of Days are all basically identical; they disclose the combined character and unified nature of the Trinity. They possess individuality and are in personality diverse, but they do not differ from each other as do the Seven Master Spirits. They provide the uniform directorship of the otherwise differing seven superuniverses, each of which is a distinct, segregated, and unique creatio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unlike in nature and attributes, but the Ancients of Days, the personal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are all uniform and superperfect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18:3.3 (209.5) The Seven Master Spirits on high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but the Ancients of Days dictate the *administration* of these same superuniverses. They superimpose administrative uniformity on creative diversity and insure the harmony of the whole in the face of the underlying creational differences of the seven segmental groupings of the grand universe.

18:3.4 (209.6) The Ancients of Days were all trinitized at the same time. They represent the beginning of the personality records of the universe of

옛적으로 늘 계신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도달하여 사물들의 시작에 대해 기록된 서류들을 찾을 때, 너희는 개인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입력이 21명의 이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삼위일체 화구현에 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높은 존재들은 항상 세 명씩 짝을 지어 통치한다. 그들이 개별존재로서 작업하는 많은 활동 위상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경우들에는 어떤 두 명이 기능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관리-행정하는 좀 더 높은 구체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반드시 함께 활동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거주세계를 친히 떠나는 일이 결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는 이들 세계들이 멀리 퍼지는 반영 체계의 초우주 초점이기 때문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 각 3인조의 개인적 거주지들은 그들의 본부 구체에 있는 영적(靈的) 극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한 구체는 70개의 행정-관리적 구역들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때때로 거주하는 70개의 구분된 수도들을 갖고 있다.

힘에서, 권한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권의 범위에 있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시간-공간 창조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 통치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하다.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 전체 안에서 오직 그들만이 의지창조체들의 영원한 소멸에 관련된 최종 집행적 심판의 높은 힘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3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모두가 초우주의 대법정의 최종 판결에 반드시 참여한다.

신(神)들 그리고 그들의 파라다이스 연관-동료들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공간 실존 중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능이고 가장 신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통치자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초우주들의 최극 통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통치 권한을 체험적으로 얻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틀림없이 그의 대관들이 될 체험적 주권자, 최극존재로 언젠가는 대체되도록 운명되어져 있다.

최극존재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에 대한 주권(主權)을 체험적으로 얻는 것과 똑같이, 체험적 봉사에 의해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주권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극자의 미완결 진화에 해당하는 현재 시대 동안,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조화-협동되고 그리고 완전한 행정-관리적 전반적-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원성에서의 지혜와 개별존재성에서의 선제권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모든 판결과 법령의 특징을 나타낸다.

universes, hence their name — *Ancients of Days*. When you reach Paradise and search the written records of the beginning of things, you will find that the first entry appearing in the personality section is the recital of the trinitization of these twenty-one Ancients of Days.

18:3.5 (209.7) These high beings always govern in groups of three. There are many phases of activity in which they work as individuals, still others in which any two can function, but in the higher spheres of their administration they must act jointly. They never personally leave their residential worlds, but then they do not have to, for these worlds are the superuniverse focal points of the far-flung reflectivity system.

18:3.6 (209.8) The personal abodes of each trio of the Ancients of Days are located at the point of spiritual polarity on their headquarters sphere. Such a sphere is divided into seventy administrative sectors and has seventy divisional capitals in which the Ancients of Days reside from time to time.

18:3.7 (210.1) In power, scope of authority, and extent of jurisdiction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most powerful and mighty of any of the direct rulers of the time-space creations. In all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they alone are invested with the high powers of final executive judgment concerning the eternal extinction of will creatures. And all three Ancients of Days must participate in the final decrees of the supreme tribunal of a superuniverse.

18:3.8 (210.2) Aside from the Deities and their Paradise associates, the Ancients of Days are the most perfect, most versatile, and the most divinely endowed rulers in all time-space existence. Apparently they are the supreme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but they have not experientially earned this right to rule and are therefore destined sometime to be superseded by the Supreme Being, an experiential sovereign, whose vicegerents they will undoubtedly become.

18:3.9 (210.3) The Supreme Being is achieving the sovereignt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y experiential service just as a Creator Son experientially earns the sovereignty of his local universe. But during the present age of the unfinished evolution of the Supreme, the Ancients of Days provide the co-ordinated and perfect administrative overcontrol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d the wisdom of originality and the initiative of individuality characterize all the decrees and rulings of the Ancients of Days.

제 4 장. 완전으로 늘 계신이

4. THE PERFECTIONS OF DAYS

정확하게 210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가 존재하고, 그들은 각 초우주의 10개 대구역들의 정부를 주관한다. 그들은 초우주 지도자들을 보좌하는 특별업무를 위하여 삼위일체화 되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즉각적이고도 개인적인 대관들로 서 다스린다.

3명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가 각 대구역 수도에 배정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는 달리, 3명 모두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때로 이 3명 중 한 명이 자신의 영역의 복지와 관련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친히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대구역들의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은 행정-관리적 세부사항의 숙달에서 각별하게 완전하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완전으로 늘 계신이다. 영적 세계의 이 존재들의 이름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희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만족할만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할 멋대로 지은 명칭들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이름, 너희에게 분명하고도 동시에 기원의 뜻을 어느 정도 대표하게 될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을 종종 발견한다.

완전으로 늘 계신이는 신성한 조언자들, 지혜의 완전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부에 배정된 우주 검열자들로 구성된 적당-크기의 무리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숫자의 막강한 메신저들,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구역 관련자들의 일상적 작업 대부분은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보좌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두 집단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 또는 영화롭게 된 필사 최종자들인, 삼위일체화 자손들 중에서 모집된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이 두 계층들 중 어떤 것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의해 재(再)-삼위일체화 되고 그런 후에 그 초우주 정부의 관리-행정을 보좌하도록 보내진다.

대부분의 천상의 수호자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이 대구역과 소구역의 봉사에 배정되지만,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삼위일체-포용된 세라핌천사들과 중도자들)은 모든 세 부문,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기능하는, 법정관리들이다. 삼위일체화 대사들(아들-융합 또는 영-융합 본성의 삼위일체-포용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초우주 안에서 어디서든지 마주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소구역의 봉사에 참여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정부 기획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시대가 오기 전에, 실천적으로 이들 정부의 다양한 부문들에 속한 모든 행정-관리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제외하고, 완전 하보나 우주

18.4.1 (210.4) There are just two hundred and ten Perfections of Days, and they preside over the governments of the ten major sectors of each superuniverse. They were trinitized for the special work of assisting the superuniverse directors, and they rule as the immediate and personal vicegerents of the Ancients of Days.

18.4.2 (210.5) Three Perfections of Days are assigned to each major sector capital, but unlike the Ancients of Days,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three be present at all times. From time to time one of this trio may absent himself to confer in person with the Ancients of Days concerning the welfare of his realm.

18.4.3 (210.6) These triune rulers of the major sectors are peculiarly perfect in the mastery of administrative details, hence their name — Perfections of Days. In recording the names of these beings of the spiritual world, we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ng into your tongue, and very often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render a satisfactory translation. We dislike to use arbitrary designations which would be meaningless to you; hence we often find it difficult to choose a suitable name, one which will be clear to you and at the same time be somewhat representative of the original.

18.4.4 (210.7) The Perfections of Days have a moderate-sized corps of Divine Counselors, Perfectors of Wisdom, and Universal Censors attached to their governments. They have still larger numbers of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But much of the routine work of major sector affairs is carried on by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 High Son Assistants. These two groups are drawn from among the trinitized offspring of either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or glorified mortal finalizers. Certain of these two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beings are retrinitized by the Paradise Deities and then are dispatched to assis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8.4.5 (211.1) Most of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 High Son Assistant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major and the minor sectors, but the Trinitized Custodians (Trinity-embraced seraphim and midwayers) are the officers of the courts of all three divisions, functioning in the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Perfections of Days, and the Recents of Days. The Trinitized Ambassadors (Trinity-embraced ascendant mortals of Son- or Spirit-fused nature) may be encountered anywhere in a superuniverse, but the majority are in the service of the minor sectors.

18.4.6 (211.2) Before the times of the full unfolding of the governmental schem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practically all administrators of the various divisions of these governments, excepting

의 다양한 세계에서 영원으로 늘 계신이 밑에서 각지 다른 기간 동안 견습신분으로 봉사했다. 나중에 삼위일체화 된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그들에 배정되기 이전에 영원으로 늘 계신이 아래에서 얼마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왔다. 그들은 모두 성숙되고, 시험을 거치고, 체험을 쌓은 행정-관리자들이다.

너희는 너희 소구역의 세계들에서 머문 후에 스프랜돈이라는 본부로 나아갈 때 완전으로 늘 계신이를 초기에 보게 될 것인데, 이는 이들 드높여진 통치자들이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보다 높은 훈련의 70개 대구역 세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으로 늘 계신이는, 개인으로, 대구역 학교들을 졸업한 상승자들에 집단 맹세를 실시한다.

시간의 순례자들이 대구역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지적 본성을 가지는 데 이것은 소구역의 일곱 교육 구체들에서 행해지는 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 훈련과 초우주 본부의 490개 대학 세계에서 행해지는 영적 사업과 대조된다.

너희가 비록 너희가 기원된 지역우주를 포용하는 스프랜돈 대구역의 등록부에만 기입되지만, 너희는 우리 초우주의 10개 주요 부분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유버사에 도달하기 전에 30명의 오르본톤 완전으로 늘 계신이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초우주들의 최극 지도자들 중 가장 젊은 분들이다; 그들은 세 명으로 집단을 이루어 소구역들의 관련사들을 관장한다. 본성적으로는 그들이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조화-협동하지만, 행정-관리적 권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종속적이다. 이들 개인적으로 영화롭고 신성하게 유능한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정확하게 21,000명이 있다. 그들은 동시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영원으로 늘 계신이 아래에서 그들의 하보나 훈련을 함께 통과하였다.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의 그것과 비슷한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의 무리단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천상존재들의 다양한 수많은 하위 계층들을 자신들에게 배정해왔다. 소구역의 관리-행정에 있어서 그들은 많은 숫자의 상승하는 거주 필사자들, 다양한 우대거류민단의 성원들, 그리고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다양한 집단들을 활용한다.

the Ancients of Days, served apprenticeships of varying duration under the Eternals of Days on the various worlds of the perfect Havona universe. The later trinitized beings likewise passed through a season of training under the Eternals of Days before they were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 Perfections of Days, and the Recents of Days. They are all seasoned, tried, and experienced administrators.

18:4.7 (211.3) You will early see the Perfections of Days when you advance to the headquarters of Splanon after your sojourn on the worlds of your minor sector, for these exalted ruler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eventy major sector worlds of higher training for the ascendant creatures of time. The Perfections of Days, in person, administer the group pledges to the ascending graduates of the major sector schools.

18:4.8 (211.4) The work of the pilgrims of time on the worlds surrounding a major sector headquarters is chiefly of an intellectual nature in contrast with the more physical and material character of the training on the seven educational spheres of a minor sector and with the spiritual undertakings on the four hundred ninety university worlds of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18:4.9 (211.5) Although you are entered only upon the registry of the major sector of Splanon, which embraces the local universe of your origin, you will have to pass through every one of the ten major divisions of our superuniverse. You will see all thirty of the Orvonton Perfections of Days before you reach Uversa.

5. THE RECENTS OF DAYS

18:5.1 (211.6) The Recents of Days are the youngest of the supreme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s; in groups of three they preside over the affairs of the minor sectors. In nature they are co-ordinat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but in administrative authority they are subordinate. There are just twenty-one thousand of these personally glorious and divinely efficient Trinity personalities. They were created simultaneously, and together they passed through their Havona training under the Eternals of Days.

18:5.2 (211.7) The Recents of Days have a corps of associates and assistants similar to that of the Perfections of Days. In addition they have assigned to them enormous numbers of the various subordinate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minor sectors they utilize large numbers of the resident ascending mortals, the personnel of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and the various groups originating in the Infinite Spirit.

소구역의 정부들은, 배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초우주의 커다란 물리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소구역 구체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본부들이다. 이 세계들에서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세 번째 계층의 최극 힘 중심들의 그리고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일곱 계층들 전체의 활동들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소구역의 체제가 물리적 문제들과 너무나 널리 관여되기 때문에, 그 세분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가 그 수도 구체에 함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은 대구역을 감독하는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논의하기 위해 떠나 있거나 높은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비밀회의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대표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의 최고회의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대표하는 일에 완전으로 늘 계신이와 교대한다. 그 동안, 다른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들에 대해 검사하는 여행으로 떠나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통치자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소구역의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남아 있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 소구역인 엔사를 담당하는 세 명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를 알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그 대구역의 훈련하는 세계들을 향하여 안쪽으로 너희 길을 갈 때 그들의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유버사로의 상승에서, 너희는 오직 한 집단의 소구역 훈련 구체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제 6 장. 연합으로 늘 계신이

“늘 계신이”의 계층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은 초우주 정부의 차원 아래에서는 행정-관리적 수용력을 가지고 기능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지역우주들에서 그들은 오직 조언자들 그리고 충고자들로서만 활동한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지역우주들의 이원적(二元的) 통치자들에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공인된 연락 개인성들의 집단이다.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각각의 지역우주는, 지역 창조에 대한 삼위일체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주 아버지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이들 파라다이스 조언자들 중 한 분을 배정받는다.

그들이 모두 임명을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존재들이 700,000명 실존하고 있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예비무리단은 우주 조절 최극협의회로서 파라다이스에서 기능한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삼위일체 관찰자들은 우주 정부의 모든 부서들의 행정-관리적 활동들을 조화-협동하는데, 지역우주들의 그것들로부터 구역 정부들을 거쳐 초우주의 그것들에 이르기까지이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연합으로 늘 계

18:5.3 (211.8) The governments of the minor sectors are very largely, though not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e great physical problems of the superuniverses. The minor sector spheres are the headquart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n these worlds ascending mortals carry on studies and experiments having to do with an exa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third order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of all seven ord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18:5.4 (212.1) Since the regime of a minor sector is so extensively concerned with physical problems, its three Recents of Days are seldom together on the capital sphere. Most of the time one is away in conferenc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of the supervising major sector or absent while representing the Ancients of Days at the Paradise conclaves of the high Trinity-origin beings. They alternate with the Perfections of Days in representing the Ancients of Days at the supreme councils on Paradise. Meanwhile, another Recent of Days may be away on a tour of inspec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belonging to his jurisdiction. But at least one of these rulers always remains on duty at the headquarters of a minor sector.

18:5.5 (212.2) You will all sometime know the three Recents of Days in charge of Ensa, your minor sector, since you must pass through their hands on your way inward to the training worlds of the major sectors. In ascending to Uversa, you will pass through only one group of minor sector training spheres.

6. THE UNIONS OF DAYS

18:6.1 (212.3) The Trinity personalities of the order of “Days” do not function in an administrative capacity below the level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In the evolving local universes they act only as counselors and advisers. The Unions of Days are a group of liaison personalities accredited by the Paradise Trinity to the dual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Each organized and inhabited local universe has assigned to it one of these Paradise counselors, who act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Trinity, and in some respects,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local creation.

18:6.2 (212.4) There are seven hundred thousand of these beings in existence, though they have not all been commissioned. The reserve corps of the Unions of Days functions on Paradise as the Supreme Council of Universe Adjustments.

18:6.3 (212.5) In a special manner these Trinity observers co-ordinate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all branches of the universal government, from those of the local universes up through the sector governments to those of the superuniverse, hence

신이다. 그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삼중으로 보고를 한다: 그들은 그들 소구역의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에게 물리적이고 반(半)-지적 성질을 가진 관련 자료들을 보고하고, 그들의 대구역의 완전으로 늘 계신이에게 지적이고 준(準)-영적인 사건들을 보고한다; 그들의 초우주의 본부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영적 그리고 반(半)-파라다이스적인 문제들을 보고한다.

그들이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파라다이스 순환회로들이 상호-통화를 위하여 그들에게 사용 가능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항상 서로 접촉을 유지하고 파라다이스의 최극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른 필요한 개인성들과 접촉을 유지한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자신이 배정된 지역우주의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관찰자로서의 그의 의무들을 제외하고, 그는 오직 지역적 권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그는 지역 창조의 모든 1차 협의회들과 모든 중요 비밀 회의들의 직권상 회원이지만, 그는 행정-관리적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고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때, 그 영화롭게 된 존재들은, 그때에는 진화적 완전의 그런 영역에서 확대된 수용력으로 기능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자유롭게 연관한다. 그러나 그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삼위일체 대사이며 파라다이스 조연자이다.

한 지역우주는 이원적(二元的) 신(神) 기원을 갖는 한 신성한 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치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한 파라다이스 형제, 삼위일체-기원 개인성을 옆에 둔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건에서, 대리 통치자들은 주로 그들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조언에 의해 그들의 주요 결정들 대부분을 안내 받는다.

제 7 장. 충심으로 늘 계신이

이 높은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은 각 지역우주 안에 있는 100개 별자리 통치자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충고자들이다. 7천만 명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있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파라다이스 예비무리단은 우주 사이의 윤리와 자아-관리에 대한 자문 협의회이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예비무리단의 최극 협의회의 통치에 따라 교대하여 봉사한다.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지역 창조의 별자리들을 통치하는 보론다덱 아들들의 관계와 같다. 그들은 그들이 배정된 별자리들의 복지에 최극으로 헌신되어 있고 신성하게 신실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이름이—충심으로 늘 계신이다. 그들은 오직 조연자들로서만 활동한다; 그

their name — *Unions of Days*. They make a threefold report to their superiors: They report pertinent data of a physical and semi-intellectual nature to the Recents of Days of their minor sector; they report intellectual and quasi-spiritual happenings to the Perfections of Days of their major sector; they report spiritual and semiparadisiacal matters to the Ancients of Days at the capital of their superuniverse.

18:6.4 (212.6) Since they are Trinity-origin beings, all of the Paradise circuits are available to them for intercommunication, and thus are they always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with all other required personalities up to the supreme councils of Paradise.

18:6.5 (212.7) A Union of Days is not organically connec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assignment. Aside from his duties as an observer, he acts only at the request of the local authorities. He is an ex officio member of all primary councils and all important conclaves of the local creation, but h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technical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problems.

18:6.6 (213.1) When a local universe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its glorified beings associate freely with the Union of Days, who then functions in an enlarged capacity in such a realm of evolutionary perfection. But he is still primarily a Trinity ambassador and Paradise counselor.

18:6.7 (213.2) A local universe is directly ruled by a divine Son of dual Deity origin, but he has constantly by his side a Paradise brother, a Trinity-origin personality. In the event of the temporary absence of a Creator Son from the headquarters of his local universe, the acting rulers are largely guided in their major decisions by the counsel of their Union of Days.

7. THE FAITHFULS OF DAYS

18:7.1 (213.3) These high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re the Paradise advisers to the ruler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in each local universe. There are seventy million Faithfuls of Days, and like the Unions of Days, not all are in service. Their Paradise reserve corps is the Advisory Commission of Interuniverse Ethics and Self-government. Faithfuls of Days rotate in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ir reserve corps.

18:7.2 (213.4) All that a Union of Days is to a Creator Son of a local universe, the Faithfuls of Days are to the Vorondadek Sons who rule the constellations of that local creation. They are supremely devoted and divinely faithful to the welfare of their constellations of assignment, hence the name — *Faithfuls of Days*. They act

들은 별자리 당국의 초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관리적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별자리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고안 건축의 훈련 구체들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게 대한 교육적 사망활동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든 사업은 보론다텍 아들들의 감독아래에 있다.

지역우주의 별자리 안에서 기능하는 모든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관할권 아래에 있고 직접 그에게 보고한다. 그들은 상호-통화의 멀리-퍼지는 체계를 갖지 않는데, 지역우주의 한계 안에서 상호-연관하는 것으로 대개 자아-제한되어 있다.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충심으로 늘 계신이든지 지역우주 안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그의 계층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통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우주 본부에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처럼,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수도에, 그러한 영역들의 행정-관리적 지도자들의 소재지와 따로, 그들의 개인적 거주지들을 유지한다. 그들의 거주지들은 별자리들의 보론다텍 통치자들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수수하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만물의 중심 가까이에 있는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구체들로부터 지역우주들의 1차 부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행정-관리적-자문 사슬에 있어서 마지막 고리이다. 삼위일체-기원 체제는 별자리들과 함께 끝나며; 그러한 파라다이스 충고자들 중 그들의 구성요소 체계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영원히 자리 잡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 후자의 행정-관리적 단위들은 전적으로 지역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

[유버사의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only as counselors; never do they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activities except upon the invitation of the constellation authorities.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in the educational ministry to the pilgrims of ascension on the architectural training spheres surrounding a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l such undertaking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orondadek Sons.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in the educational ministry to the pilgrims of ascension on the architectural training spheres surrounding a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l such undertaking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Vorondadek Sons.

18:7.3 (213.5) All Faithfuls of Days functioning in the constellations of a local universe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and report directly to, the Union of Days. They do not have a far-flung system of intercommunication, being ordinarily self-limited to an interassociation within the limits of a local universe. Any Faithful of Days on duty in Nebadon can and does communicate with all others of his order on duty in this local universe.

18:7.4 (213.6) Like the Union of Days on a universe headquarters, the Faithfuls of Days maintain their personal residence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separate from those of the administrative directors of such realms. Their abodes are indeed modest in comparison with the homes of the Vorondadek rulers of the constellations.

18:7.5 (213.7) The Faithfuls of Days are the last link in the long administrative-advisory chain which reaches from the sacred spheres of the Universal Father near the center of all things to the primary divisions of the local universes. The Trinity-origin regime stops with the constellations; no such Paradise advisers are permanently situated on their component systems or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latter administrative units are who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being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18:7.6 (213.8)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19 편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존재

⇨ 018

유랜시아 책

020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19 편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존재

섹션

소개

- 제 1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 제 2 장. 지혜의 완전자
- 제 3 장. 신성한 조언자
- 제 4 장. 우주검열자
- 제 5 장.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 제 6 장. 하보나 원주민
- 제 7 장. 파라다이스 시민

소개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존재라고 명명되는 이 파라다이스 집단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포용한다, 또한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높은 초우주 행정-관리자들의 세 집단들, 그리고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어느 정도 미(未)개인적 범주에 분류되기도 한다. 심지어 하보나 원주민들도, 파라다이스에 거주하는 수많은 집단의 존재들을 따라서 삼위일체 개인성의 이 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고려될 그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2. 지혜의 완전자
3. 신성한 조언자
4. 우주 검열자
5.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6. 하보나 원주민
7. 파라다이스 시민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그리고 아마 영감받은

PAPER 19
THE CO-ORDINATE TRINITY-
ORIGIN BEING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inity Teacher Sons
2. The Perfectors of Wisdom
3. The Divine Counselors
4. The Universal Censors
5. Inspired Trinity Spirits
6. Havona Natives
7. Paradise Citizens

INTRODUCTION

19:0.1 (214.1) THIS Paradise group, designated the Co-ordinate Trinity-origin Beings, embraces the Trinity Teacher Sons, also classed among the Paradise Sons of God, three groups of high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and the somewhat impersonal category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Even the Havona natives may properly be included in this classification of Trinity personalities along with numerous groups of beings resident on Paradise. Those Trinity-origin beings to be considered in this discussion are:

19:0.2 (214.2) 1. Trinity Teacher Sons.

19:0.3 (214.3) 2. Perfectors of Wisdom.

19:0.4 (214.4) 3. Divine Counselors.

19:0.5 (214.5) 4. Universal Censors.

19:0.6 (214.6) 5. Inspired Trinity Spirits.

19:0.7 (214.7) 6. Havona Natives.

19:0.8 (214.8) 7. Paradise Citizens.

19:0.9 (214.9) Excepting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삼위일체 영들까지도 제외하고, 이 집단들은 정확한 숫자에 해당된다; 그들의 창조는 완결되었고 과거의 사건이다.

possibly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these groups are of definite numbers; their creation is a finished and past event.

제 1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1. THE TRINITY TEACHER SONS

너희에게 계시된 천상의 개인성들의 모든 높은 계층들 중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만이 이원적(二元的) 역량을 가지고 활동한다. 삼위일체 본성의 기원에 의해, 기능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신성한 아들관계의 봉사에 거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기원 개인성과 이원(二元)-기원 개인성들 사이의 우주 심연에 다리를 놓는 연락하는 존재들이다.

19.1.1 (214.10) Of all the high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revealed to you, the Trinity Teacher Sons alone act in a dual capacity. By origin of Trinity nature, in function they are almost wholly devoted to the services of divine sonship. They are the liaison beings who bridge the universe gulf between Trinity- and dual-origin personalities.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이 완성된 숫자에 해당하는 반면, 교사 아들들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교사 아들들의 최종적 숫자가 얼마가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버사에 보내진 마지막 정기 보고서에서는 봉사하는 이 아들들의 숫자가 파라다이스의 기록에 21,001,624,821명으로 나타나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19.1.2 (214.11) Whil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are of completed numbers, the Teacher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What the final number of Teacher Sons will be I do not know. I can, however, state that, at the last periodic report to Uversa, the Paradise records indicated 21,001,624,821 of these Sons in service.

이 존재들은 그 기원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에게 계시된 유일한 집단이다. 그들의 범위는 중앙우주와 초우주에 이르고, 거대한 무리단이 각 지역우주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하듯이 개별 행성들에서도 봉사한다. 대우주의 기획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아들들 중 많은 숫자는 파라다이스에서 예비자들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대우주의 모든 부문에서, 공간의 외로운 세계들에서, 지역우주와 초우주들에서, 그리고 하보나의 세계들에서, 긴급 임무 그리고 특별한 봉사에 자원한다. 그들은 또한 파라다이스에서도 기능하지만, 그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考察)은 우리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19.1.3 (214.12) These beings are the only group of the Sons of God revealed to you whose origin is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range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d an enormous corps is assigned to each local universe. They also serve the individual planets as do the other Paradise Sons of God. Since the scheme of the grand universe is not fully developed, large numbers of Teacher Sons are held in the reserves on Paradise, and they volunteer for emergency duty and unusual service in all divisions of the grand universe, on the lone worlds of space, in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and on the worlds of Havona. They also function on Paradise, but it will be more helpful to postpone their detailed consideration until we come to the discussion of the Paradise Sons of God.

아무튼, 이와 관련하여, 교사 아들들이 삼위일체 기원의 최극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들임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우주에서는 항상, 한정된 관점의 잘못, 실체와 신성의 부분화되어진 개념에 선천적인 악에게 굴복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9.1.4 (215.1) In this connection, however, it may be noted that Teacher Sons are the supreme coordinating personalities of Trinity origin. In such a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there is always great danger of succumbing to the error of the circumscribed viewpoint, to the evil inherent in a segmentalized conception of reality and divinity.

예를 들자면: 인간 마음은 단순하고 유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무한한 것으로, 인간 기원들로부터 신성한 운명들에게로 진행시킴으로써 이 계시에서 묘사된 조화우주 철학에 접근하기를 대개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 지혜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한 과정은 발생론적 지식의 어떤 일정형태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의 기원을 계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계시하거나 또는 전혀 계시하지 못한다.

19.1.5 (215.2) For example: The human mind would ordinarily crave to approach the cosmic philosophy portrayed in these revelations by proceeding from the simple and the finite to the complex and the infinite, from human origins to divine destinies. But that path does not lead to *spiritual wisdom*. Such a procedure is the easiest path to a certain form of *genetic knowledge*, but at best it can only reveal man's origin; it reveals little or nothing about his divine destiny.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19.1.6 (215.3) Even in the study of man's biologic

연구에서도 심지어는, 사람의 지금-현재 지위와 그의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배타적인 역사적 접근 방법에 극심한 반대가 있다. 어떤 실체 문제든지—인간의 또는 신성한, 지구상 또는 조화우주의—그에 대한 참된 시각은 우주 실체의 세 위상들: 기원, 역사, 그리고 운명에 대한 충분하고도 편견 없는 연구와 그리고 상호관련성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들 세 체험적 실체에 대한 적절한 납득은 현재지위에 대한 지혜로운 평가에 기초를 잘 제공해준다.

생물학적으로든지 또는 신학적으로든지, 인간 마음이 더 높은 것에 접근하기 위하여 낮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적 기법을 따라갈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잘못들을 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1. 그것은 개인적 달성 또는 조화우주 운명의 최종적이고도 완성된 진화적 목표를 깨닫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다.

2. 그것은 우주의 진화적 (체험적) 실체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하여 사실들에 대한 왜곡과 진리에 대한 오용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도함으로써 결국 철학적 실책을 범할 수 있다.

3. 원인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를 통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러한 존재의 현재 지위와 참된 성격에 대한 지능적 납득을 필연적으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4. 역사 그 자체만으로는 미래발전—운명—을 적절하게 계시하지 못한다. 유한한 기원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신성한 원인만이 최종 결과들을 계시할 수 있다. 영원한 끝은 시간의 시작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오직 상관관계된 과거와 미래에 비추어야만 참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화우주 실존과 모든 개인성 실체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시간-공간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사람과 그의 행성 문제들에게 접근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 2 장. 지혜의 완전자

지혜의 완전자들은 초우주에서 신성의 지혜를 개인화하도록 고안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특별한 창조체이다. 실존하는 이 존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70억 명이고, 10억 명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과 조화-협동 존재들인, 신성한 조연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과 공통으로, 지혜의 완전자들은 파라다이스의, 하보나의 지혜를 거쳐 지나갔고, 신성별은 제외하고,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의 구체들의 지혜를 거쳐 지나갔다. 이 체험들이 있

evolution on Urantia, there are grave objections to the exclusive historic approach to his present-day status and his current problems. The true perspective of any reality problem — human or divine, terrestrial or cosmic — can be had only by the full and unprejudiced study and correlation of three phases of universe reality: origin, history, and destiny.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se three experiential realities affords the basis for a wise estimate of the current status.

19:1.7 (215.4) When the human mind undertakes to follow the philosophic technique of starting from the lower to approach the higher, whether in biology or theology, it is always in danger of committing four errors of reasoning:

19:1.8 (215.5) 1. It may utterly fail to perceive the final and completed evolutionary goal of either personal attainment or cosmic destiny.

19:1.9 (215.6) 2. It may commit the supreme philosophical blunder by oversimplifying cosmic evolutionary (experiential) reality, thus leading to the distortion of facts, to the perversion of truth, and to the misconception of destinies.

19:1.10 (215.7) 3. The study of causation is the perusal of history. But the knowledge of *how* a being becomes does not necessarily provide an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us and true character of such a being.

19:1.11 (215.8) 4. History alone fails adequately to reveal future development — destiny. Finite origins are helpful, but only divine causes reveal final effects. Eternal ends are not shown in time beginnings. The present can be truly interpreted only in the light of the correlated past and future.

19:1.12 (215.9) Therefore, because of these and for still other reasons, do we employ the technique of approaching man and his planetary problems by embarkation on the time-space journey from the infinite, eternal, and divine Paradise Source and Center of all personality reality and all cosmic existence.

2. THE PERFECTORS OF WISDOM

19:2.1 (215.10)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a specialized cre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designed to personify the wisdom of divinity in the superuniverses. There are exactly seven billion of these beings in existence, and one billion are assigned to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9:2.2 (215.11) In common with their co-ordinates, the Divine Counselors and the Universal Censors, the Perfectors of Wisdom passed through the wisdom of Paradise, of Havona, and except for Divinington, of the Father's Paradise spheres.

은 후에 지혜의 완전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도 봉사하지 않고 파라다이스-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세계들에서도 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으로 초우주 정부의 관리·행정에 종사하고 있다.

지혜의 완전자들이 기능하는 곳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든지, 신성한 지혜가 거기에서 그리고 그 때 기능한다. 막강하고 장엄한 이들 개인성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식과 지혜에는 현존의 실재성과 현시활동의 완전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지혜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그 지혜이다. 그들은 우주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선생들을 위한 지혜의 근원이다; 그들은 모든 우주들 안에 있는 학문과 식별의 연구기관에게 사려 깊은 분별의 샘이자 판별의 우물이다.

지혜는 기원에서 이중적인데, 완전존재에서 선천적인 신성한 통찰력의 완전으로부터, 그리고 진화적 창조체들에 의해 성취되는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지혜의 완전자들은 신(神) 통찰력의 파라다이스 완전의 신성한 지혜이다.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행정·관리적 동료들, 막강한 메신저들, 이름·번호 없는 자들, 그리고 높은 권한자들은, 함께 활동할 때, 체험의 우주 지혜이다. 신성한 존재는 신성한 지혜의 완전을 소유할 수 있다. 진화하는 필사자는 때로 상승 지식의 완전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 존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모든 가능한 지혜의 잠재를 다 내 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초우주의 처리행위에 있어서 행정·관리적 지혜의 최고가 성취되는 것이 요구될 때에는 언제든지, 진화적 진보의 체험적 고난을 통하여 초우주 권한의 높은 책임 위치들로 올라간 그 상승하는 개인성들과 신성한 통찰력의 이 지혜의 완전자들이 항상 연관한다.

지혜의 완전자들은 그들의 행정·관리적 총명성의 완성을 위하여 체험적 지혜의 이 보완물을 항상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의 높은 그리고 지금까지 달성되지 않은 차원이, 그들이 언젠가 영 실존의 일곱 번째 단계 안으로 모집된 이후에, 파라다이스 최종자에 의해 성취될 가능성이 있음이 추측되어 왔다. 만일 이 추론이 맞다면, 진화적 상승의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모든 창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력적인 우주 행정·관리자들이 될 것이 틀림없다. 나는 그러한 것이 최종자의 높은 운명임을 믿는다.

지혜의 완전자들의 다재다능함은 그들이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모든 천상의 봉사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혜의 완전자들과 나의 계층의 개인성, 신성한 조연자들은, 우주 검열자들과 함께, 개별적 행성들과 체계들에게, 그들의 초기 신(新)시대들이든지 또는 빛과 생명 속에 정

After these experiences the Perfectors of Wisdom were permanent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serve neither on Paradise nor on the worlds of the Paradise-Havona circuits; they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9:2.3 (216.1) Wherever and whenever a Perfector of Wisdom functions, there and then divine wisdom functions. There is actuality of presence and perfection of manifestation in the knowledge and wisdom represented in the doings of these mighty and majestic personalities. They do not *reflect* the wisdom of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that wisdom. They are the sources of wisdom for all teachers in the application of universe knowledge; they are the fountains of discretion and the wellsprings of discrimination to the institutions of learning and discernment in all universes.

19:2.4 (216.2) Wisdom is twofold in origin, being derived from the perfection of divine insight inherent in perfect beings and from the personal experience acquired by evolutionary creatures.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the divine wisdom of the Paradise perfection of Deity insight. Their administrative associates on Uversa, the Mighty Messengers,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nd Those High in Authority, when acting together, are the universe wisdom of experience. A divine being can have perfection of divine knowledge. An evolutionary mortal can sometime attain perfection of ascendant knowledge, but neither of these beings alone exhausts the potentials of all possible wisdom. Accordingly, whenever in the conduct of the superuniverse it is desired to achieve the maximum of administrative wisdom, these perfectors of the wisdom of divine insight are always associated with those ascendant personalities who have come up to the high responsibilities of superuniverse authority through the experiential tribulation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19:2.5 (216.3) The Perfectors of Wisdom will always require this complement of experiential wisdom for the completion of their administrative sagacity. But it has been postulated that a high and hitherto unattained level of wisdom may possibly be achieved by the Paradise finalizers *after* they are sometime inducted into the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If this inference is correct, then would such perfected beings of evolutionary ascent undoubtedly become the most effective universe administrators ever to be known in all creation. I believe that such is the high destiny of finalizers.

19:2.6 (216.4) The versatility of the Perfectors of Wisdom enables them to participate in practically all of the celestial services of the ascendant creature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my order of personality, the Divine Counselors, together with the Universal Censors, constitute the

착할 때든지, 진리를 계시하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존재들의 가장 높은 계층을 이루고 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최초-생명 행성으로부터 위로는 지역우주 그리고 초우주를 통하여, 특히 후자를 통하여, 상승하는 필사자의 봉사와 닿는다.

제 3 장. 신성한 조언자

이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영역에게 주는 신(神)의 조언이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그 조언이다. 봉사하는 210억 명의 조언자들이 있고, 각 초우주마다 30억 명이 배정되어 있다.

신성한 조언자들은 우주검열자들과 지혜의 완전자들의 동료이며 그리고 대등한 존재들인데, 1명에서 7명의 조언자들이 이 후자(後者) 개인성들 각각과 연관되어 있다. 세 계층들 모두가, 대구역 그리고 소구역들을 포함하여 지역우주 그리고 별자리에서 그리고 지역체계 주권자들의 협의회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정부에 참여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별존재로서 활동하지만, 또한 우리는 상황이 요구할 때에는 셋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집행적 수용력에서 활동할 때는, 한 명의 지혜의 완전자, 한 명의 우주검열자, 그리고 한 명에서 일곱 명에 이르는 신성한 조언자들이 연관된다.

한 명의 지혜의 완전자, 일곱 명의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한 명의 우주검열자는 삼위일체 신성의 법정,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동 자문기관을 구성한다. 그러한 아홉 명의 집단은 사실-발견 또는 진리-계시 법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문제에 대하여 심판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마치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그 문제를 판결한 것과 동일한데, 왜냐하면 초우주들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그러한 판결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바뀐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기능하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기능한다. 아홉 명의 법정이 연합된 심의를 거친 후 결정에 도달하면, 모든 의도들과 목적에 대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말씀을 완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은 행정-관리적 문제들과 정부 규정에서 개별 세계들, 체계들 그리고 우주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다.

신성한 조언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언의 완전이다. 우리는 완전의 조언을 대표하며 사실 그 자체이다. 우리가 우리 동료들,

highest orders of beings who may and do engage in the work of revealing truth to the individual planets and systems, whether in their earlier epochs or when settled in light and life. From time to time we all make contact with the service of the ascending mortals, from an initial-life planet on up through a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particularly the latter.

3. THE DIVINE COUNSELORS

19:3.1 (216.5) These Trinity-origin beings are the counsel of Deity to the realm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not *reflective* of the divine counsel of the Trinity; they *are* that counsel. There are twenty-one billion Counselors in service, and three billion are assigned to each superuniverse.

19:3.2 (217.1) Divine Counselors are the associates and equals of the Universal Censors and the Perfectors of Wisdom, from one to seven Counselors being associated with each of these latter personalities. All three orders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of the Ancients of Days, including major and minor sectors, in the local universes and constellations, and in the councils of the local system sovereigns.

19:3.3 (217.2) We act as individuals, as I do in inditing this statement, but we also function as a trio whenever the occasion requires. When we act in an executive capacity, always there are associated together a Perfector of Wisdom, a Universal Censor, and from one to seven Divine Counselors.

19:3.4 (217.3) One Perfector of Wisdom, seven Divine Counselors, and one Universal Censor constitute a tribunal of Trinity divinity, the highest mobile advisory bod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Such a group of nine is known either as a fact-finding or as a truth-revealing tribunal, and when it sits in judgment upon a problem and renders a decision, it is just as if an Ancient of Days had adjudicated the matter, for in all the annals of the superuniverses such a verdict has never been reversed by the Ancients of Days.

19:3.5 (217.4) When the three Ancients of Days function, the Paradise Trinity functions. When the tribunal of nine arrives at a decision following its united deliberation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Ancients of Days have spoken. And it is in this manner that the Paradise Rulers make personal contact, in administrative matters and governmental regulation, with the individual worlds, systems, and universes.

19:3.6 (217.5) Divine Counselors are the perfection of the divine counsel of the Paradise Trinity. We represent, in fact *are*, the counsel of perfection.

진화 상승의 삼위일체-포용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존재들의 체험적 조연에 의해 보완될 때, 병합된 결론들은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충만하다. 우리의 연합된 조연이 우주검열자에 의해 연관되고 평결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공포 되면, 그때는 우주 총체성의 입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판결들은 관련된 문제와 개재된 상황의 시간-공간 한계 안에서, 신(神)의 절대적 태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을 대표한다.

삼위일체화된 진화하는 3인조—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와 연락을 이루는 일곱 명의 신성한 조연자들은, 영적 의미와 실체 가치의 준(準)-파라다이스 차원에서의 인간 관점과 신성한 태도의 연합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초우주를 대표한다. 창조체와 창조자의 연관된 조화우주 태도의 그렇게 가까운 근접성은, 개인성 체험의 모든 위상에서,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인 파라다이스 증여의 아들들 안에서만 넘어설 수 있다.

제 4 장. 우주검열자

정확하게 80억 명의 우주검열자들이 실존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신(神)의 심판이다. 그들은 단순히 완전한 결정에 대한 반영이 아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심판이다. 심지어 옛적으로 늘 계신지도 우주 검열자와 관계적-연합하지 않고서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중앙우주의 10억 개 세계들 각각에 한 명의 검열자가 임명되는데, 거주하는 영원으로 늘 계신이의 행정 관리-행정에 부속되어 있다. 지혜의 완전자뿐만 아니라 신성한 조연자들도 하보나 관리-행정에 그렇게 영구토록 부속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왜 우주검열자들이 중앙우주에 주둔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그들의 현재 활동은 그들이 하보나 안에 배정된 이유를 도저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보나 인구가 부분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어느 미래 우주 시대에서의 필요성을 예상해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10억 명의 검열자들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다. 개별존재 수용력과 그리고 지혜의 완전자와 신성한 조연자들과의 관계적-연합, 둘 모두에서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모든 부문에 두루 작용한다. 검열자들은 하보나의 완전세계들로부터 체계 주권자들의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대우주의 모든 차원에서 활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 세계의 모든 섭리시대적 판결의 하나의 유기적 부분이다.

When we are supplemented by the experiential counsel of our associates, the perfected and Trinity-embraced beings of evolutionary ascent, our combined conclusions are not only complete but replete. When our united counsel has been associated, adjudicated, confirmed, and promulgated by a Universal Censor, it is very probable that it approaches the threshold of universal totality. Such verdicts represent the nearest possible approach to the absolute attitude of Deity within the time-space limits of the situation involved and the problem concerned.

19:3.7 (217.6) Seven Divine Counselors in liaison with a trinitized evolutionary trio — a Mighty Messenger, One High in Authority,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 represent the nearest superuniverse approach to the union of the human viewpoint and the divine attitude on near-paradisiacal levels of spiritual meanings and reality values. Such close approximation of the united cosmic attitudes of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is only surpassed in the Paradise bestowal Sons, who are, in every phase of personality experience, God and man.

4. THE UNIVERSAL CENSORS

19:4.1 (217.7) There are exactly eight billion Universal Censors in existence. These unique beings are the judgment of Deity. They are not merely reflective of the decisions of perfection; they are the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Even the Ancients of Days do not sit in judgment except in association with the Universal Censors.

19:4.2 (217.8) One Censor is commissioned on each of the billion worlds of the central universe, being attached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of the resident Eternal of Days. Neither Perfector of Wisdom nor Divine Counselors are thus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avona administrations, nor do we altogether understand why Universal Censors are stationed in the central universe. Their present activities hardly account for their assignment in Havona, and we therefore suspect that they are there in anticipation of the needs of some future universe age in which the Havona population may partially change.

19:4.3 (218.1) One billion Censors are assigned to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oth in an individual capacity and in association with Perfector of Wisdom and Divine Counselors, they operate throughout all divisio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us the Censors act on all levels of the grand universe, from the perfect worlds of Havona to the councils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y are an organic part of all dispensational adjudicati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우주 검열자가 나타나는 때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신(神)의 심판이 그때 그리고 그곳에 있다. 그리고 검열자들이 항상 지혜의 완전자들과 신성한 조연자들과 연락하면서 그들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합된 지혜, 조연과 판결을 포용하고 있다. 이 사법적 삼인조(三人組)에서 지혜의 완전자는 “나는 이었다”이고, 신성한 조연자는 “나는 일 것이다”가 되겠지만, 우주 검열자는 항상 “나는 이다”이다.

검열자들은 총합하는 우주 개인성이다. 천 명의—또는 백만 명의—증인이 증언이 되면, 지혜의 음성이 말을 완료하고 신성의 조연이 기록이 되면, 상승에서의 완전에 대한 증언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검열자가 기능하고, 밝혀진 모든 것의 정확하고도 신성한 총합이 즉시 제시된다; 그리고 그러한 발표는 신성한 결론,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결정의 총합과 본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검열자가 말을 완료하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검열자가 그 전에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참되고도 오류가 없는 전체를 이미 묘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때, 어떤 항의도 없다.

나는 지혜의 완전자의 마음작용을 가장 충분하게 납득하지만, 내가 우주 검열자의 판결하는 마음의 작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 나에게서는 검열자들이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어떤 조사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사실들, 진리들 그리고 조사 결과들의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들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 검열자들은, 완전한 창조자 통찰력과 완전하게 된 창조체 체험의 병합에 대한 기원적인 해석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파라다이스 완전과 우주 체험의 이 관계적-연합은 궁극에 분명히 새로운 가치를 결국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주 검열자들의 마음 작용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치는 마지막 어려움은 아니다.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 검열자의 기능에 관해 우리가 알거나 짐작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착각한 후에도, 우리는 결정을 내다보거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을 여전히 발견한다. 우리는 창조자 태도와 창조체 체험의 관계적-연합의 가능한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론들은 항상 검열자 발표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검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神) 절대자들과 연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정들과 통치자들의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연자들, 그리고 우주검열자들은, 일곱 계층의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과 함께, 때때로 삼위일체 고정아들로 지칭되어 온 그 10개의 집단을 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삼위일체 관리행정자들, 통치자들, 집행자들, 총

19:4.4 (218.2) Whenever and wherever a Universal Censor is present, then and there is the judgment of Deity. And since the Censors always render their verdicts in liaison with Perfectors of Wisdom and Divine Counselors, such decisions embrace the united wisdom, counsel, and judgment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is juridical trio the Perfector of Wisdom would be the “I was,” the Divine Counselor the “I will be,” but the Universal Censor is always “I am.”

19:4.5 (218.3) The Censors are universe totaling personalities. When a thousand witnesses have given testimony — or a million — when the voice of wisdom has spoken and the counsel of divinity has recorded, when the testimony of ascendant perfection has been added, then the Censor functions, and there is immediately revealed an unerring and divine totaling of all that has transpired; and such a disclosure represents the divine conclusion, the sum and substance of a final and perfect decision. Therefore, when a Censor has spoken, no one else may speak, for the Censor has depicted the true and unmistakable total of all that has gone before. When he speaks, there is no appeal.

19:4.6 (218.4) Most fully do I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mind of a Perfector of Wisdom, but I certainly do not fully comprehend the working of the adjudicating mind of a Universal Censor. It appears to me that the Censors formulate new meanings and originate new values from the association of the facts, truths, and findings presented to them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f universe affairs. It seems probable that the Universal Censors are able to bring forth original interpretations of the combination of perfect Creator insight and the perfected creature experience. This association of Paradise perfection and universe experience undoubtedly eventuates a new value in ultimates.

19:4.7 (218.5) But this is not the end of our difficulties regarding the working of the minds of the Universal Censors. Having made due allowances for all that we know or conjecture about the functioning of a Censor in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we find that we are still unable to predict decisions or to forecast verdicts. We very accurately determine the probable result of the association of Creator attitude and creature experience, but such conclusions are not always accurate forecasts of Censor disclosures. It seems likely that the Censors are in some manner in liaison with the Deity Absolute; we are otherwise unable to explain many of their decisions and rulings.

19:4.8 (218.6)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together with the seven orders of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constitute those ten groups which have been sometimes designated *Stationary Sons of the*

고자들, 조연자들, 그리고 심판관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무리단을 이룬다. 그들의 숫자는 370억을 조금 넘는다. 20억 70명이 중앙우주에 그리고 50억 명을 조금 넘는 숫자가 각 초우주에 주둔한다.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기능적 한계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의 행동들이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초우주 기록의 활동행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간-공간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 우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진화에 관계되는, 모든 우주 관리-행정이나 또는 판결 차원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거의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실존하는, 존재의 전적으로 비밀인 계층의 하나이며, 그 기원이 그들의 창조의 근원과 그토록 가까운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조차도 그들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는 것이 그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비밀이다. 그들은 파다이스 삼위일체의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신(神)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셋 전체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영들이 완성된 숫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믿고자 한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의 본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행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초개인적 영들의 범주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순환회로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과 공간에 거의 상관없이 활동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 우주들 내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찰하는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본성으로부터 그들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일정 조건 아래에서, 이들 영감받은 영은 삼위일체 기원의 존재들에 의해 감지되기에 충분하도록 스스로를 개별존재화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보아 왔지만; 그들 중 하나를 알아보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행위성에서 때때로, 삼위일체 기원의 어떤 존재든지 자신의 직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들 영을 직접 고용해도 되는 어떤 환경이 또한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명령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며, 때때로 그들의 현존을 인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물질적 창조계들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기 전에 시간-공간 우주의 행위성을 위탁받은, 현시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된 조직의 일부는 아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들의 현재 계층이나 또는 관리-행정에서는 두

Trinity. Together they comprise the grand corps of Trinity administrators, rulers, executives, advisers, counselors, and judges. Their numbers slightly exceed thirty-seven billion. Two billion and seventy are stationed in the central universe and just over five billion in each superuniverse.

19:4.9 (219.1) It is very difficult to portray the functional limits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It would be incorrect to state that their acts are finite limited, for there are transactions of superuniverse record which indicate otherwise. They act on any level of universe administration or adjudication that may be required by time-space conditions and that pertains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volution of the master universe.

5. INSPIRED TRINITY SPIRITS

19:5.1 (219.2) I will be able to tell you very little concerni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for they are one of the few wholly secret orders of beings in existence, secret, no doubt,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m fully to reveal themselves even to those of us whose origin is so near the source of their creation. They come into being by the ac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may be utilized by any one or two of the Deities as well as by all three. We do not know whether these Spirits are of completed numbers or are constantly increasing, but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ir number is not fixed.

19:5.2 (219.3) We fully understand neither the nature nor the conduct of the Inspired Spirits. They may possibly belong to the category of superpersonal spirits. They seem to operate over all known circuits and appear to act well-nigh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But we know little about them except as we deduce their character from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the results of which we certainly observe here and there in the universes.

19:5.3 (219.4)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Inspired Spirits can individualize themselves sufficiently for recognition by beings of Trinity origin. I have seen them; but it would never be possible for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o recognize one of them. Certain circumstances also arise from time to time in the conduct of the evolving universes in which any being of Trinity origin may directly employ these Spirits in the furtherance of his assignments. We therefore know that they exist, an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we may command and receive their assistance, sometimes recognize their presence. But they are not a part of the manifest and definitely revealed organization intrusted with the conduct of the time-space universes before such material creation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have no clearly

렷하게 식별 가능할만한 위치가 없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그들 계급이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일정 유형의 연관-동료로서, 그들이 배치됨에 따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되고 있는 단독 메신저들을 영원한 미래의 언젠가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대신하여 기능하도록 운명되어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영감받은 영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단독 영들이다. 영으로서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뚜렷한 개인성인 것을 제외한다면, 단독 메신저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을 단독 메신저들로부터 얻는데, 자석바늘이 자극(磁極)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처럼 기능하는 영감받은 영들의 현존에 대한 그들의 선천적인 민감성덕분에 그들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한다. 단독 메신저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가까이 있으면, 그는 그러한 신성 현존의 질적 정조와 그리고 또한 영 현존이나 현존들의 등급과 수를 그가 실제로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분명한 양적 기록을 의식한다.

나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다: 단독 메신저가, 유란시아에서와 같이, 그 거주민들에게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는 행성에 있을 때, 그는 영 현존을 그의 감지-민감성에서의 질적 자극으로 안다. 그러한 예의 경우에는 양적 자극은 없고 오직 질적 동요만이 있다. 조절자들이 오지 않는 행성에 있을 때, 원주민들과의 접촉은 그 어떤 반응도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생각 조절자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감받은 영에 어떤 방법으로 관계되거나 또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은 그들 일의 일정한 위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들 둘 모두가 만물의 근원이며 중심 가까이에서 기원되지만, 그들은 같은 계층의 존재는 아니다. 생각 조절자들은 아버지로부터만 생겨난다; 영감받은 영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손들이다.

영감받은 영들은 겉으로 보기에 개별 행성들 또는 우주들의 진화 기획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계층의 영 현존에 대한 나의 연관-동료인 단독 메신저의 개인적 민감성은 바로 이 순간에도 8미터 넘지 않는 거리에, 영감받은 계층인 그리고 셋째 수준의 힘 현존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가르킨다. 힘 현존의 셋째 수준은 우리에게 세 영감받은 영들이 연락하며 기능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현재 나와 연관된 열 두 계층 이상의 존재들 중, 단독 메신저는 삼위일체의 이 신비스러운 실

discernible place in the present economy or administration of the evolving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a secret of the Paradise Trinity.

19:5.4 (219.5) The Melchizedeks of Nebadon teach that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destined, sometime in the eternal future, to function in the places of the Solitary Messengers, whose ranks are slowly but certainly being depleted by their assignment as associates of certain types of trinitized sons.

19:5.5 (219.6) The Inspired Spirits are the solitary Spir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Spirits they are very much like the Solitary Messengers except that the latter are distinct personalities. We obtain much of our knowledge of the Inspired Spirits from the Solitary Messengers, who detect their nearness by virtue of an inherent sensitivity to the presence of the Inspired Spirits which functions just as unfailingly as a magnetic needle points to a magnetic pole. When a Solitary Messenger is near an Inspired Trinity Spirit, he is conscious of a qualitative indication of such a divine presence and also of a very definite quantitative registration which enables him actually to know the classification or number of the Spirit presence or presences.

19:5.6 (220.1) I may relate a further interesting fact: When a Solitary Messenger is on a planet whose inhabitants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as on Urantia, he is aware of a qualitative excitation in his detection-sensitivity to spirit presence. In such instances there is no quantitative excitation, only a qualitative agitation. When on a planet to which Adjusters do not come, contact with the natives does not produce any such reaction. This suggests that Thought Adjusters are in some manner related to, or are connected with, the Inspired Spirits of the Paradise Trinity. In some way they may possibly be associated in certain phases of their work; but we do not really know. They both originate near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things, but they are not the same order of being. Thought Adjusters spring from the Father alone; Inspired Spirits are the offspring of the Paradise Trinity.

19:5.7 (220.2) The Inspired Spirits do not apparently belong to the evolutionary scheme of the individual planets or universes, and yet they seem to be almost everywhere. Even as I am engaged in the formulation of this statement, my associated Solitary Messenger's personal sensitivity to the presence of this order of Spirit indicates that there is with us at this very moment, not over twenty-five feet away, a Spirit of the Inspired order and of the third volume of power presence. The third volume of power presence suggests to us the probability that three Inspired Spirits are functioning in liaison.

19:5.8 (220.3) Of more than twelve orders of beings associated with me at this time, the Solitary

존개체들의 현존을 감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더욱이, 우리가 이들 신성한 영들의 가까이 있음을 그렇게 통지받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들의 임무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지, 또는 우리가 시도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기여하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우주 창조체들의 의식적 깨우침에 헌신하고 있음을 안다.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초의식 기법으로 영역의 선생으로서 기능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미 도달하였다. 나는, 본질적인 영적 지식의 광대한 본체,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높은 영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자아-의식은 받아들임의 확실성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개념에서 옳고, 그리고 나의 계층 전체가 그것을 공감한다면, 도덕적 깨우침의 우주적 기획과 영적 전진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 간격에 다리를 놓는 일이 이들 영감받은 영들의 임무일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기원 교사들의 이 두 유형들이 그들의 활동에서 어떤 종류의 접촉에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초우주 훈련 세계에서 그리고 하보나의 영원한 순환회로들에서, 나는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들과—진화하는 영역들로부터의 영성화 되고 상승하는 혼들—형제우애관계를 맺어 왔지만.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에 들어있는 감지력이 때때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곳에 영감받은 영들이 있음을 가르치는데도, 이 필사자들은 아무도 알아차린 적이 없었다. 나는 높고 낮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과 자유롭게 교제해 왔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훈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영들의 활동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체험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나 단독 메신저들을 그리고 때로는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을 제외하고, 천상의 집단들 중 어느 누구도 영감받은 영들의 근접성을 의식한 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이 나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교통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기를 어렵게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들은 상호적이고 선천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우주에 독단적인 비밀들이 없음에 대해 만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체의 나의 계층에 속하는 이들 영들의 고립에 있을 신비를 풀어보려는 나의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한 여행에 첫 발을 방금 디디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가 “보고” 그리고 “물질적” 확신으로 너희가 진보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는

Messenger is the only on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se mysterious entities of the Trinity. And further, while we are thus apprised of the nearness of these divine Spirits, we are all equally ignorant of their mission. We really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merely interested observers of our doings, or whether they are, in some manner unknown to us, actually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ur undertaking.

19:5.9 (220.4) We know that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devoted to the *conscious* enlightenment of universe creatures. I have arrived at the settled conclusion that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by *superconscious* techniques, are also functioning as teachers of the realms. I am persuaded that there is a vast body of essential spiritual knowledge, truth indispensable to high spiritual attainment, which cannot be consciously received; self-consciousness would effectively jeopardize the certainty of reception. If we are right in this concept, and my entire order of being shares it, it may be the mission of these Inspired Spirit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to bridge this gap in the universal scheme of moral enlightenment and spiritual advancement. We think that these two types of Trinity-origin teachers effect some kind of liaison in their activities, but we do not really know.

19:5.10 (220.5) On the superuniverse training worlds and on the eternal circuits of Havona, I have fraternized with the perfecting mortals — spiritualized and ascendant souls from the evolutionary realms — but never have they been aware of the Inspired Spirits, which ever and anon the powers of detection resident in the Solitary Messengers would indicate were very near us. I have freely conversed with all orders of the Sons of God, high and low, and they likewise are unconscious of the admonitions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They can and do look back in their experiences and recount happenings which are difficult to explain if the action of such Spirits is not taken into account. But excepting Solitary Messengers, and sometimes Trinity-origin beings, none of the celestial family have ever been conscious of the nearness of the Inspired Spirits.

19:5.11 (221.1) I do not believe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playing hide and seek with me. They are probably trying just as hard to disclose themselves to me as I am to communicate with them; our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must be mutual and inherent. I am satisfied that there are no arbitrary secrets in the universe; therefore will I never cease in my efforts to solve the mystery of the isolation of these Spirits belonging to my order of creation.

19:5.12 (221.2) And from all this, you mortals, just now taking your first step on the eternal journey, can well see that you must advance a long way before you will progress by “sight” and “material”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진보하고자 희망한다면 신앙을 오랫동안 사용할 것이고 계시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하보나 원주민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직접적 창조체이며, 그들의 숫자는 너희의 제한된 마음의 개념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이들 삼위일체-기원 종족과 같은 그러한 신성하게 완전한 창조체들의 선천적 자질들을 유란시아인들이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 너희는 이 영원화로운 창조체를 정말로 상상할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때 너희는 영 동지로서 그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보나 문화에 속하는 10억 세계들에 오래 머무는 동안 너희는 이 찬란한 존재들에 대한 영원한 친분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간세계들로부터 온 가장 낮은 개인적 창조체와 중앙우주의 완전한 구체들의 원주민인 이 높은 개인적 존재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친분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들과 그들이 길고도 사랑하는 관계적-연합을 이룸에 있어서, 필사자 진보의 이전 단계의 형적 빈궁함을 크게 보상받을 것이다. 동시에,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맺는 그들의 접촉을 통하여, 하보나인들은 신성한 완전의 삶을 살면서 항상 가졌던 체험적 장애를 적지 않게 극복하는 체험을 얻는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하보나 원주민 둘 모두에 대한 이득은 크고도 상호적이다.

하보나 원주민들은, 다른 모든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완전 속에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다른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과 같이, 시간의 경과가 체험적 자질의 저장에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고정아들과는 달리, 하보나인들은 지위에서 진보할 수도 있고,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영원-운명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비-조절자 아버지 단편과 융합하는 수용력을 봉사로-사실화하고, 그렇게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회원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저들 하보나인들에 의해 예시되었다. 그리고 중앙우주의 이 원주민들에게 열려진 다른 최종자 무리단들이 있다.

하보나 원주민들의 지위의 진화는 유버사에서의 많은 공론을 야기해 왔다. 그들이 여러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안으로 계속 침투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하보나에 머무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들 활동행위의 궁극적 결과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보나가 그 원주민들을 계속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외부 공간 차원들의 이어지는 창조시대들 동안 언젠가 최종자 무리단에 하보나인들이 들어가기로 아마도 멈추게 될 것이

assurance. You will long use faith and be dependent on revelation if you hope to progress quickly and safely.

6. HAVONA NATIVES

19:6.1 (221.3) The Havona natives are the direct cre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ir number is beyond the concept of your circumscribed minds. Neither is it possible for Urantians to conceive of the inherent endowments of such divinely perfect creatures as these Trinity-origin races of the eternal universe. You can never truly envisage these glorious creatures; you must await your arrival in Havona, when you can greet them as spirit comrades.

19:6.2 (221.4) During your long sojourn on the billion worlds of Havona culture you will develop an eternal friendship for these superb beings. And how deep is that friendship which grows up between the lowest personal creature from the worlds of space and these high personal beings native to the perfect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Ascending mortals, in their long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Havona natives, do much to compensate for the spiritual impoverishment of the earlier stages of mortal progress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ir contacts with ascending pilgrims, the Havoners gain an experience which to no small extent overcomes the experiential handicap of having always lived a life of divine perfection. The good to both ascending mortal and Havona native is great and mutual.

19:6.3 (221.5) Havona natives, like all other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re projected in divine perfection, and as with other Trinity-origin personalities, the passing of time may add to their stores of experiential endowments. But unlik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Havoners may evolve in status, may have an unrevealed future eternity-destiny. This is illustrated by those Havoners who service-factualize capacity for fusion with a non-Adjuster Father fragment and so qualify for membership in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re are other finaliter corps open to these natives of the central universe.

19:6.4 (221.6) The status evolution of Havona natives has occasioned much speculation on Uversa. Since they are constantly filtering into the several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and since no more are being created, it is apparent that the number of natives remaining in Havona is constantly diminishing. The ultimate consequences of these transactions have never been revealed to us, but we do not believe that Havona will ever be entirely depleted of its natives. We have entertained the theory that Havoners will possibly cease entering

라는 이론을 환영해 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에 있어서 중앙우주가 혼합된 집단의 거주 존재들로 가득 차는, 최초의 하보나 원주민들이 시민의 일부분만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우리는 어떤 계층 또는 유형의 창조체가 미래 하보나에서 거주 지위를 얻는 운명을 그렇게 가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온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비타시아, 지역우주 별자리들의 현재 영구 시민

2. 빛과 생명의 시대가 개화(開花)될 때 초우주들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필사자들의 미래 유형.

3. 이어지는 외부 우주들에서 들어오는 영적 상류층.

우리는 이전(以前) 우주 시대의 하보나가 현재 시대의 하보나와 어느 정도 달랐음을 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시하는 그러한 느린 변화를, 중앙우주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일리 있다고 여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주는 정적 상태가 아니며; 오직 하느님만이 변화가 없다.

제 7 장. 파라다이스 시민

파라다이스에는 수많은 집단의 훌륭한 존재들,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거주한다. 그들은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을 완전하게 하는 기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충분히 계시되지 않는다. 3천이 넘는 이 훌륭한 지능체들의 계층들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집단은 시간과 공간의 일곱 초우주들의 창조적 계획을 선포한 삼위일체의 명령과 동시에 개인성구현되어 왔다.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로서 통틀어서 명명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실존하게 된 저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완료시킨다. 그들 중 아무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은 통행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세라핌천사들과 같은 운송 개인성들에게 그들이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가진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공간의

the finaliter corps sometime during the ages of the successive creations of the outer space levels. We have also entertained the thought that in these subsequent universe ages the central universe may be peopled by a mixed group of resident beings, a citizenship consisting only in part of the original Havona natives. We do not know what order or type of creature may be thus destined to residential status in the future Havona, but we have thought of:

19:6.5 (222.1) 1. The univitatia, who are at present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constellations.

19:6.6 (222.2) 2. Future types of mortals who may be born on the inhabited spheres of the superuniverses in the flowering of the ages of light and life.

19:6.7 (222.3) 3. The incoming spiritual aristocracy of the successive outer universes.

19:6.8 (222.4) We know that the Havona of the previous universe age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Havona of the present age. We deem it no more than reasonable to assume that we are now witnessing those slow changes in the central universe that are anticipatory of the ages to come. One thing is certain: The universe is nonstatic; only God is changeless.

7. PARADISE CITIZENS

19:7.1 (222.5) There are resident on Paradise numerous groups of superb beings, the Paradise Citizens. They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scheme of perfecting ascending will creatures and are not, therefore, fully revealed to Urantia mortals. There are more than three thousand orders of these supernal intelligences, the last group having been personalized simultaneously with the mandate of the Trinity which promulgated the creative pla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19:7.2 (222.6) Paradise Citizens and Havona natives are sometimes designated collectively as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19:7.3 (222.7) This completes the story of those beings who are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Paradise Trinity. None of them have ever gone astray. And yet, in the highest sense, they are all freewill endowed.

19:7.4 (222.8) Trinity-origin beings possess prerogatives of transit which make them independent of transport personalities, such as seraphim. We all possess the power of moving about freely and quickly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Excepti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we cannot attain the almost unbelievable velocity

운송 수단들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에 유란시아 시간으로 1년 안에 초우주에서, 그 본부로부터, 어떤 지점까지도 이를 수 있다. 내가 유버사로부터 유란시아로 여행하는 데에 너희 시간으로 109일이 소요되었다.

바로 이들 큰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상호교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창조체 계층 전체는, 오직 영감받은 영들만 별도로 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자녀들의 모든 부서 안에 포용된 각 개별존재와 접촉을 하면서 바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한다.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of the Solitary Messengers, but we are able so to utilize the sum total of the transport facilities in space that we can reach any point in a superuniverse, from its headquarters, in less than one year of Urantia time. It required 109 days of your time for me to journey from Uversa to Urantia.

19:7.5 (222.9) Through these same avenues we are enabled to intercommunicate instantaneously. Our entire order of creation finds itself in touch with every individual embraced within every division of the children of the Paradise Trinity save only the Inspired Spirits.

19:7.6 (222.10)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20 편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 019

유랜시아 책

021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0 편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

색션

소개

- 제 1 장. 하강하는 하느님 아들
- 제 2 장. 치안법관 아들
- 제 3 장. 사법적 행동
- 제 4 장. 치안법관의 임무
- 제 5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
- 제 6 장. 필사자-증여 생애
- 제 7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 제 8 장. 데이날들의 지역우주 사명활동
- 제 9 장. 데이날들의 행성 봉사
- 제 10 장.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연합된 사명활동

PAPER 20

THE PARADISE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 2. The Magisterial Sons
- 3. Judicial Actions
- 4. Magisterial Missions
- 5. Bestow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 6. The Mortal-Bestowal Careers
- 7. The Trinity Teacher Sons
- 8. Local Universe Ministry of the Daynals
- 9. Planetary Service of the Daynals
- 10. United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소개

그들이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기능할 때, 하느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일반적 항목으로 분류된다:

- 1.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
- 2.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 3.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

아들관계의 하강하는 계층들은 직접적이고 신성한 창조의 개인성들을 포함한다. 필사 창조체들과 같은,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라고 알려진 창조적 기법에의 체험적인 참여에 따라서 이 지위를 획득한다. 삼위일체화 아들들은 직접적 삼위일체 기원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된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는 혼합 기원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INTRODUCTION

20:0.1 (223.1) AS THEY function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 Sons of God are classified under three general heads:

- 20:0.2 (223.2)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 20:0.3 (223.3) 2. The Ascending Sons of God.
- 20:0.4 (223.4) 3. The Trinitized Sons of God.

20:0.5 (223.5) Descending orders of sonship include personalities who are of direct and divine creation. Ascending sons, such as mortal creatures, achieve this status by experiential participation in the creative technique known as evolution. Trinitized Sons are a group of composite origin which includes all beings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even though not of direct Trinity origin.

제 1 장. 하강하는 하느님 아들

1. THE DESCENDING SONS OF GOD

하강하는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은 높고도 신성한 기원들을 갖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 그리고 체계들에서 진화적 기원—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낮은 창조체들이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하강하는 봉사의 사명활동에 전념한다. 수많은 하강하는 아들의 계층들 중에, 일곱 가지가 이 장에서 서술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있는 신(神)들로부터 나오는 그 아들들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세 계층들이 포함된다:

1. 창조자 아들들—미가엘.
2. 치안법관 아들들—아보날.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데이날.

하강하는 아들관계 중 나머지 네 계층들은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로 알려져 있다:

1. 멜기세덱 아들
2. 보론다덱 아들
3. 라노난덱 아들
4. 생명운반자

멜기세덱들은 지역우주 창조자 아들과 창조영 그리고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동 후손이다. 보론다덱들과 라노난덱들은 모두 창조자 아들과 그의 동료 창조 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보론다덱들은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라노난덱들은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영주들로서 알려져 있다. 생명운반자들의 3중 계층은 초우주 관할권을 갖는 세 옛적으로 늘 계신이 중 하나와 연관된 한 창조자 아들과 창조영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본성들과 활동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관련사들을 다루는 그 글들에서 더 알맞게 설명되어 있다.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3중 기원을 갖는다: 1차 또는 창조자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2차 또는 치안법관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자손들이다. 봉사와 경배와 기도의 입장에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하나이다; 그들의 영은 하나이고, 그들의 일은 질과 완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늘 계신이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이 신성한 행정-관리자들로 확인되듯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계층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창조자들, 봉사자들, 중여자들, 심판관들, 선생들, 그리고 계시자들—로서 자신들을 나타냈다. 그들은 영원한 섬의 주변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

20:1.1 (223.3) All descending Sons of God have high and divine origins. They are dedicated to the descending ministry of service on the worlds and systems of time and space, there to facilitate the progress in the Paradise climb of the lowly creatures of evolutionary origin — the ascending sons of God. Of the numerous orders of descending Sons, seven will be depicted in these narratives. Those Sons who come forth from the Deities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are called the *Paradise Sons of God* and embrace the following three orders:

- 20:1.2 (223.4) 1. Creator Sons — the Michaels.
- 20:1.3 (223.5) 2. Magisterial Sons — the Avonals.
- 20:1.4 (223.6) 3. Trinity Teacher Sons — the Daynals.

20:1.5 (223.7) The remaining four orders of descending sonship are known as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 20:1.6 (223.8) 4. Melchizedek Sons.
- 20:1.7 (223.9) 5. Vorondadek Sons.
- 20:1.8 (223.10) 6. Lanonandek Sons.
- 20:1.9 (223.11) 7. The Life Carriers.

20:1.10 (223.12) Melchizedeks are the joint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Creator Son, Creative Spirit, and Father Melchizedek. Both Vorondadeks and Lanonandeks are brought into being by a Creator Son and his Creative Spirit associate. Vorondadeks are best known as the Most Highs, the Constellation Fathers; Lanonandeks as System Sovereigns and as Planetary Princes. The threefold order of Life Carriers is brought into being by a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associated with one of the thre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jurisdiction. But the natures and activities of these Local Universe Sons of God are more properly portrayed in those paper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the local creations.

20:1.11 (224.1) The Paradise Sons of God are of threefold origin: The primary or Creator Son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secondary or Magisterial Sons are children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the offspring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From the standpoint of service, worship, and supplication the Paradise Sons are as one; their spirit is one, and their work is identical in quality and completeness.

20:1.12 (224.2) As the Paradise orders of Days proved to be divine administrators, so have the orders of Paradise Sons revealed themselves as divine ministers — creators, servers, bestowers, judges, teachers, and truth revealers. They range the universe of universes from the shores of the eternal Isle to the inhabited worlds of time and

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는데, 이 설명들에 나타나지 않는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에서 복합적인 봉사를 수행한다. 그들은, 그들의 봉사의 본성과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우주에서는 치안법관 그리고 교사 아들들 모두 그 권역을 지배하는 창조자 아들의 지도 아래에서 봉사한다.

창조자 아들들은, 마치 너희 자신의 창조자 아들이 그가 그의 영을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필사 육신들에게 부여주었을 때처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자신들이 증여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개인들 안에 중심을 이루는 영적 자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창조자 아들은 그 자신의 권역에서 이 영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역 안에서 봉사하는 각각의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의식한다. 여기에 영원한 아들이 모든 우주들의 우주의 어디에 있든지, 그로 하여금 모든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접촉을 이룩하고 유지하는 절대적인 영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신성한 반응, 지역우주의 복제가 있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은 봉사하고 증여하는 그들의 하강하는 직무들에 있어서 아들들로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하느님의 아들들이, 우주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창조체 헌신에서 그리고 그의 창조자 아들의 우주 주권에 대한 행성의 충성에서 완결을 이루어 가는, 행성들을 하나씩 거두어들이도록 고안된, 증여와 영적고양의 임무를 계속하며, 그들이 그들의 증여생애를 완료하였을 때 각자는 그 자신의 창조에서 우주의 아버지로서 기능한다.

칠중 창조자 아들 안에서는, 창조자와 창조체는 이해심이 있고 동정적이며 자비로운 관계적-연합 속에 언제나 혼합되어 있다. 미가엘, 창조자 아들들의 전체 계층은 너무나도 독특해서 그들의 본성과 활동들에 대한 고려는 이것과 연결되는 다음 장에서 설명될 것이며, 반면에 이 장에서는 주로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나머지 두 계층들: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제 2 장. 치안법관 아들

영원한 아들에 의해 형성되는 기원적이고도 절대적인 개념이 무한한 영에 의해 계획되는 사랑스러운 봉사의 새롭고도 신성한 이상과 연합할 때마다, 새롭고도 기원적인 하느님의 아들, 파라다이스 치안법관 아들이 산출된다. 이 아들들은 미가엘, 창조자 아들의 계층과는 대조적으로 아보날 계층을 구성한다. 개인적 의미에서는 창조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전체 활동 속에서 미가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보날들은 행성 사명활동자 그리고 재판관, 시간-공간 영역들의—모든 종족들의, 모든 세계들에 대한, 그리고 모든 우주들에서—치안법관이다.

space, performing manifold services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not disclosed in these narratives. They are variously organized, dependent on the nature and whereabouts of their service, but in a local universe both Magisterial and Teacher Sons serv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reator Son who presides over that domain.

20:1.13 (224.3) The Creator Sons seem to possess a spiritual endowment centering in their persons, which they control and which they can bestow, as did your own Creator Son when he poured out his spirit upon all mortal flesh on Urantia. Each Creator Son is endowed with this spiritual drawing power in his own realm; he is personally conscious of every act and emotion of every descending Son of God serving in his domain. Here is a divine reflection, a local universe duplication, of that absolute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Eternal Son which enables him to reach out to make and maintain contact with all his Paradise Sons, no matter where they may b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20:1.14 (224.4) The Paradise Creator Sons serve not only as Sons in their descending ministrations of service and bestowal, but when they have completed their bestowal careers, each functions as a universe Father in his own creation, while the other Sons of God continue the service of bestowal and spiritual uplifting designed to win the planets, one by one, to the willing recognition of the loving rule of the Universal Father, culminating in creature consecration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and in planetary loyalty to the universe sovereignty of his Creator Son.

20:1.15 (224.5) In a sevenfold Creator Son, Creator and creature are forever blended in understanding, sympathetic, and merciful association. The entire order of Michael, the Creator Sons, is so unique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ir natures and activities will be reserved to the next paper in this series, while this narrative will be chiefly concerned with the two remaining orders of Paradise sonship: the Magisterial Son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2. THE MAGISTERIAL SONS

20:2.1 (224.6) Every time an original and absolute concept of being formulated by the Eternal Son unites with a new and divine ideal of loving service conceived by the Infinite Spirit, a new and original Son of God, a Paradise Magisterial Son, is produced. These Sons constitute the order of Avonals in contradistinction to the order of Michael, the Creator Sons. Though not creators in the personal sense,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ichaels in all their work. The Avonals are planetary ministers and judges, the magistrates of the time-space realms — of all races, to all

우리는 대우주에서의 치안법관 아들들의 전체 숫자가 약 10억 명이라고 믿는 이유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전체 우주들의 봉사들로부터 체험 있는 아보날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라다이스의 그들의 최극협의회에 의해 지도를 받는, 자아-관리 조직이다. 그러나 지역우주에 배정되고 임명되었을 때, 그들은 그 권역의 창조자 아들의 지도 아래에서 봉사한다.

아보날들은 지역우주들의 개별 행성에게 봉사하고 증여의 파라다이스 아들이다. 그리고 각 아보날 아들이 배타적 개인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느 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의 개별적으로 독특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종종 육신화하고 어떤 때에는 진화 세계들의 지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비교적 높은 행정-관리적 차원에서의 그들의 봉사 이외에도, 아보날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3중 기능을 갖는다:

1. 사법 활동. 그들은 행성의 섭리시대들이 마무리될 때 활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수백-의 그러한 임무들이 각 개별 세계에서 집행될 것이며, 그들은 섭리시대 종결자들,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수없이 여러 번 동일한 또는 다른 세계들로 가게 될 것이다.

2. 치안법관 임무. 이 유형의 행성방문은 대개 증여 아들의 도착 이전에 발생한다. 그러한 임무가 있을 경우 아보날은 필사자 탄생이 배제된 육신화 기법에 의해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난다. 이것 번째의 그리고 일상적인 치안법관 방문 이후에, 아보날들은 증여 아들의 출현 이전과 이후에 모두 동일한 행성에서 치안법관의 수용력으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이 추가적인 치안법관 임무들에 아보날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그 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3. 증여 임무. 아보날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에 필사 종족에게 자신들을 증여한다. 심판을 위한 방문들은 여러 번이고, 치안법관의 임무들은 복수이지만, 각각의 행성에는 오직 한 명의 증여 아들만이 나타난다. 증여 아보날들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되었던 것과 같이 여인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보날 아들들이 치안법관의 임무와 증여 임무에 봉사하게 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개는, 그 체험이 일곱 번을 넘을 때, 그러한 봉사를 적게 받은 아보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중지된다. 여러 번 증여 체험을 갖는 이 아들들은 그 때 창조자 아들의 높은 개인적 협의회에 배정되고, 그래서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참여자가 된다.

worlds, and in all universes.

20:2.2 (225.1) We have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 total number of Magisterial Sons in the grand universe is about one billion. They are a self-governing order, being directed by their supreme council on Paradise, which is made up of experienced Avonals drawn from the services of all universes. But when assigned to, and commissioned in, a local universe, they serv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reator Son of that domain.

20:2.3 (225.2) Avonals are the Paradise Sons of service and bestowal to the individual planets of the local universes. And since each Avonal Son has an exclusive personality, since no two are alike, their work is individually unique in the realms of their sojourn, where they are ofte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sometimes are born of earthly mothe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20:2.4 (225.3) In addition to their services on the higher administrative levels, the Avonals have a threefold function on the inhabited worlds:

20:2.5 (225.4) 1. *Judicial Actions*. They act at the close of the planetary dispensations. In time, scores — hundreds — of such missions may be executed on each individual world, and they may go to the same or to other worlds times without number as dispensation terminators, liberators of the sleeping survivors.

20:2.6 (225.5) 2. *Magisterial Missions*. A planetary visitation of this type usually occurs prior to the arrival of a bestowal Son. On such a mission an Avonal appears as an adult of the realm by a technique of incarnation not involving mortal birth. Subsequent to this first and usual magisterial visit, Avonals may repeatedly serve in a magisterial capacity on the same planet both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the bestowal Son. On these additional magisterial missions an Avonal may or may not appear in material and visible form, but on none of them will he be born into the world as a helpless babe.

20:2.7 (225.6) 3. *Bestowal Missions*. The Avonal Sons do all, at least once, bestow themselves upon some mortal race on some evolutionary world. Judicial visits are numerous, magisterial missions may be plural, but on each planet there appears but one bestowal Son. Bestowal Avonals are born of woman as Michael of Nebadon was incarnated on Urantia.

20:2.8 (225.7)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imes the Avonal Sons may serve on magisterial and on bestowal missions, but usually, when the experience has been seven times traversed, there is suspension in favor of those who have had less of such service. These Sons of multiple bestowal experience are then assigned to the high personal council of a Creator Son, thus becoming

거주되는 세계들을 위한 그리고 그 위에서의 그들의 일 전체에서, 치안법관 아들은 지역우주 창조체들의 두 계층들, 멜기세덱들과 천사장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중여 임무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창조계 안에서 기원된 찬란한 저녁별들과 동행한다. 모든 행성의 노력에서 있어서, 2차 파라다이스 아들, 아보날들은 봉사하는 그들의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인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의 충분한 힘과 권한에 의해 후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서의 그들의 업무는 마치 창조자 아들이 필사자 거주민들의 그러한 세계들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효력이 있고 인정될 수 있다.

제 3 장. 사법적 행동

아보날들은 치안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영역들의 치안법관들, 시간 세계들의 이어지는 섭리시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영역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며, 공의(公義)가 보류된 섭리시대의 종결을 짓고, 보호관찰 하는 자비의 시대의 통치를 집행하며, 행성 사명활동의 공간 창조체들을 새로운 섭리시대의 과업에 재배치하고, 그들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그들의 지역우주의 본부로 돌아간다.

그들이 시대의 운명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아보날들이 진화적 종족들의 숙명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 창조체들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심판을 내리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본성의 평결은 오직 초우주 당국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한 섭리시대를 종결짓고 그리고 행성 진보의 신기원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치안법관의 임무 또는 중여 임무는 아니다. 치안법관의 임무들은 가끔, 그리고 중여 임무들은 언제나, 육신화한다; 그러한 임무 아보날들은—글자 그대로—물질적 형태로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들은 “기술적”인 경우이며, 이러한 능력의 경우에는 아보날이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 되지 않는다. 만일 치안법관 아들이 오직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만 온다면, 그는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하며, 영역의 물질적 창조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기술적 방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아보날 아들들은 치안법관의 체험과 중여 체험 모두에 앞서서 행성 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임무 중 어느 경우든지, 육신

participants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20:2.9 (225.8) In all their work for and on the inhabited worlds, the Magisterial Sons are assisted by two orders of local universe creatures, the Melchizedeks and the archangels, while on bestowal missions they are also accompani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likewise of origin in the local creations. In every planetary effort the secondary Paradise Sons, the Avonals, are supported by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of a primary Paradise Son, the Creator Son of their local universe of service.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ir work on the inhabited spheres is just as effective and acceptable as would have been the service of a Creator Son upon such worlds of mortal habitation.

3. JUDICIAL ACTIONS

20:3.1 (226.1) The Avonals are known as Magisterial Sons because they are the high magistrates of the realms, the adjudicators of the successive dispensations of the worlds of time. They preside over the awakening of the sleeping survivors, sit in judgment on the realm, bring to an end a dispensation of suspended justice, execute the mandates of an age of probationary mercy, reassign the space creatures of planetary ministry to the tasks of the new dispensation, and return to the headquarters of their local universe upon the completion of their mission.

20:3.2 (226.2) When they sit in judgment on the destinies of an age, the Avonals decree the fate of the evolutionary races, but though they may render judgments extinguishing the identity of personal creatures, they do not execute such sentences. Verdicts of this nature are executed by none but the authorities of a superuniverse.

20:3.3 (226.3) The arrival of a Paradise Avonal on an evolutionary world for the purpose of terminating a dispensation and of inaugurating a new era of planetary progression is not necessarily either a magisterial mission or a bestowal mission. Magisterial missions sometimes, and bestowal missions always, are incarnations; that is, on such assignments the Avonals serve on a planet in material form — literally. Their other visits are “technical,” and in this capacity an Avonal is not incarnated for planetary service. If a Magisterial Son comes solely as a dispensational adjudicator, he arrives on a planet as a spiritual being, invisible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 Such technical visits occur repeatedly in the long history of an inhabited world.

20:3.4 (226.4) Avonal Sons may act as planetary judges prior to both the magisterial and bestowal experiences. On either of these missions,

화된 아들이 당면한 행성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필사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여하는 임무를 띠고 육신화할 때, 창조자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 중 하나처럼 될 때, 그의 현존은 한 섭리시대를 종결시키고 그 영역에 대한 심판을 이룬다.

제 4 장. 치안법관의 임무

증여 아들의 행성 출현에 앞서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는 대개 치안법관의 임무를 띤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방문을 받는다. 만일 그것이 최초의 치안법관 방문이라면 아보날은 항상 물질적 존재로 육신화 한다. 그는 배정된 행성에 필사 종족들 중 한 충만하게-성장한 남자, 충분히 보이는 존재,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그의 시대와 세대의 필사 창조체로 나타난다. 치안법관의 육신화에 두루, 아보날 아들과 그 지역 그리고 우주의 영적 기세들 간의 연결은 완벽하고, 단절되지 않는다.

행성은 증여 아들의 출현 이전과 이후에 많은 치안법관의 방문들을 체험할 수 있다. 동일한 또는 다른 아보날들이 섭리시대적 심판관들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그러한 기술적 임무들은 증여도 아니고 치안법관도 아니다, 그래서 아보날들은 그러한 경우에 결코 육신화 되지 않는다. 심지어 행성이 반복적인 치안법관의 임무들로 방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보날들이 필사 육신화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봉사할 때, 그들은 항상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증여 또는 치안법관의 임무들로 육신화 되었을 때,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체험된 조절자들을 소유하고, 이 조절자들은 각각의 육신화마다 다르다. 육신화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점유하는 조절자들은 그들이 내주한 인간-신성한 존재들과의 융합을 통한 개인성을 결코 바랄 수 없지만, 그들은 종종 우주 아버지의 인가로서 개인성구현된다. 그러한 조절자들은 신비 관찰자의 관리-행정, 정책화구현,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영역에 대한 파견을 지도하는 신성별 최극 협의회를 형성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땅에서의 장막에 대한 필사자 분해를 겪고 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절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한다. 이 방법으로, 그 세계 심판관들의 신실한 조절자들은 그들 동료들의 드높여진 우두머리들이 된다.

유란시아는 치안법관의 임무를 띤 아보날 아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만일 유란시아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향한 일반적 계획을 따랐더라면,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사이의 언젠가 치안법관 임무의 방문을 받았을 것이

however, the incarnated Son will judge the passing planetary age; likewise does a Creator Son when incarnated on a mission of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When a Paradise Son visits an evolutionary world and becomes like one of its people, his presence terminates a dispensation and constitutes a judgment of the realm.

4. MAGISTERIAL MISSIONS

20:4.1 (226.5) Prior to the planetary appearance of a bestowal Son, an inhabited world is usually visited by a Paradise Avonal on a magisterial mission. If it is an initial magisterial visitation, the Avonal is always incarnated as a material being. He appears on the planet of assignment as a full-fledged male of the mortal races, a being fully visible to, and in physical contact with, the mortal creatures of his day and generation. Throughout a magisterial incarnation the connection of the Avonal Son with the local and the universal spiritual forces is complete and unbroken.

20:4.2 (226.6) A planet may experience many magisterial visitations both before and after the appearance of a bestowal Son. It may be visited many times by the same or other Avonals, acting as dispensational adjudicators, but such technical missions of judgment are neither bestowal nor magisterial, and the Avonals are never incarnated at such times. Even when a planet is blessed with repeated magisterial missions, the Avonals do not always submit to mortal incarnation; and when they do serv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y always appear as adult beings of the realm; they are not born of woman.

20:4.3 (227.1) When incarnated on either bestowal or magisterial missions, the Paradise Sons have experienced Adjusters, and these Adjusters are different for each incarnation. The Adjusters that occupy the minds of the incarnated Sons of God can never hope for personality through fusion with the human-divine beings of their indwelling, but they are often personalized by fiat of the Universal Father. Such Adjusters form the supreme Divinington council of direction for the administration, identification, and dispatch of Mystery Monitors to the inhabited realms. They also receive and accredit Adjusters on their return to the “bosom of the Father” upon the mortal dissolution of their earthly tabernacles. In this way the faithful Adjusters of the world judges become the exalted chiefs of their kind.

20:4.4 (227.2) Urantia has never been host to an Avonal Son on a magisterial mission. Had Urantia followed the general plan of inhabited worlds, it would have been blessed with a magisterial mission sometime between the days of Adam and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But the regular

다. 그러나 너희 행성에서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규 순서는 1,900년 전에 그의 최종 증여로서 너희 창조자 아들이 출현함에 따라 전적으로 흐트러졌다.

유란시아는 치안법관의 임무를 띠고 육신화 하도록 위임받은 아보날의 방문을 아직 받을 수도 있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장래 출현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러한 방문의 시기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가엘-증여 세계는 주(主)아들의 개별적이고도 친히 돌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경우 그 자신의 계획과 통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리고 너희 세계의 경우에는, 이것은 미가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더욱 복잡하게 되어 있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무른 것과 관련된 오해와는 상관없이, 분명하게 진정한 한 가지 사실은—너희 세계에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방문하는 앞날의 순서는 오직 시간만이 밝힐 수 있다.

제 5 장.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아들은 그의 영원한 아버지의 “첫째” 절대적이고 무한한 생각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 기원 아들의 개인적 복제 또는 신성한 확장이신 분이 필사 육신화의 증여임무에 들어갈 때, 신성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동물 기원의 낮은 존재들 사이에서 거하였다 것이 글자 그대로 진리가 된다.

유란시아에서 아들의 증여의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 우주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너희의 깨우침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야만 한다. 아보날과 미가엘 아들의 증여들은 이 아들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사람들과 행성들에 대한 안전하고도 동정적인 치안법관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되게 하도록 계획된 체험적 진보의 필요한 일부분이다. 7중 증여의 생애는 모든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의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모든 치안법관 아들들은 1차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특징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이 동일한 봉사의 영으로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 구체의 모든 일반적 인간 존재들의 마음에 생각 조절자들이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각 필사자-거주되는 세계에 파라다이스 아들의 어떤 계층이 증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조절자들은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여될 때까지 모든 선의의 인간 존재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의 파견은 진화하는 세계에 필사자 증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오는 것에 따른다.

sequence of Paradise Sons on your planet was wholly deranged by the appearance of your Creator Son on his terminal bestowal nineteen hundred years ago.

20:4.5 (227.3) Urantia may yet be visited by an Avonal commissioned to incarnate on a magisterial mission, but regarding the future appearance of Paradise Sons,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know the time or manner of such visitations,” for a Michael-bestowal world becomes the individual and personal ward of a Master Son and, as such, is wholly subject to his own plans and rulings. And with your world, this is further complicated by Michael’s promise to return. Regardless of th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Urantian sojourn of Michael of Nebadon, one thing is certainly authentic — his promise to come back to your world. In view of this prospect, only time can reveal the future order of the visitations of the Paradise Sons of God on Urantia.

5. BESTOWAL OF THE PARADISE SONS OF GOD

20:5.1 (227.4) The Eternal Son is the eternal Word of God. The Eternal Son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first” absolute and infinite thought of his eternal Father. When a personal duplication or divine extension of this Original Son starts on a bestowal mission of mortal incarnation, it becomes literally true that the divine “Word is made flesh,” and that the Word thus dwells among the lowly beings of animal origin.

20:5.2 (227.5) On Urantia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that the purpose of a Son’s bestowal is, in some manner, to influence the attitud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your enlightenment should indicate that this is not true. The bestowals of the Avonal and the Michael Sons are a necessary part of the experiential process designed to make these Sons safe and sympathetic magistrates and rulers of the peoples and planets of time and space. The career of sevenfold bestowal is the supreme goal of all Paradise Creator Sons. And all Magisterial Sons are motivated by this same spirit of service which so abundantly characterizes the primary Creator Sons and the Eternal Son of Paradise.

20:5.3 (227.6) Some order of Paradise Son must be bestowed upon each mortal-inhabited world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 minds of all normal human beings on that sphere, for the Adjusters do not come to *all* bona fide human beings until the Spirit of Truth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the sending of the Spirit of Truth is dependent upon the return to universe headquarters of a Paradise Son who has successfully executed a mission of mortal bestowal upon an evolving world.

거주되는 행성의 긴 역사 과정 동안, 많은 섭리시대적 판결들이 일어날 것이며, 한 번 이상의 치안법관 임무가 발생하겠지만, 대개 오직 한 번만 증여 아들이 그 구체에서 봉사한다.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는,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충분한 필사자 삶을 살게 되는 한 명의 증여 아들을 갖는 것만이 요구된다. 조만간에, 영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모든 필사자-거주 세계는 각 지역우주 안에서 창조자 아들이 그의 필사자 증여를 하기로 선택한 하나의 행성을 제외하고는 증여 임무를 띤 치안법관 아들의 방문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증여 아들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네바돈의 역사 속에서 유란시아에 왜 그토록 흥미가 집중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작고 보잘 것 없는 행성이 지역우주의 관심인 것은 단순히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 창조자 아들의 최종적이고도 승리에 넘친 증여의 장면,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최극 개인적 주권을 얻은 장(場)이었다.

자신의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창조자 아들은, 특별히 그의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연관-동료 아들들,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대학에서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랑과 헌신함으로, 섬세한 자비와 애정 어린 동정심으로, 이 치안법관 아들들은 공간세계들에 그들을 증여한다. 그리고 이 행성 봉사들은 어떤 면에서도 미가엘들의 필사자 증여보다 열등하지 않다. 유별난 불운을 겪었던 한 곳을 너희 창조자 아들이 창조체 체험에서 그의 최종적 모험 여행의 영역으로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그것의 영적 부흥에 영향을 주도록 창조자 아들의 증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속에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증여 집단의 어떤 아들들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의 그들의 모든 일에서 그 치안법관 아들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형제, 창조자 아들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효력이 있고 모든 것에 지혜롭기 때문이다.

재난의 가능성이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의 육신화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항상 수반되더라도, 나는 증여 임무를 띠고 있는 치안법관 또는 창조자 아들의 실패 또는 불이행에 관한 기록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 둘 모두는 기원에서 너무나 절대적 완전에 가까워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당한다,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필사 창조체들과 비슷하게 되고 그리하여 독특한 창조체 체험을 가지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에서는 그들이 항상 성공하였다. 그들은 증여 임무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에 두루 그들의 증여와 행성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 지역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매혹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20:5.4 (228.1) During the course of the long history of an inhabited planet, many dispensational adjudications will take place, and more than one magisterial mission may occur, but ordinarily only once will a bestowal Son serve on the sphere. It is only required that each inhabited world have one bestowal Son come to live the full mortal life from birth to death. Sooner or later, regardless of spiritual status, every mortal-inhabited world is destined to become host to a Magisterial Son on a bestowal mission except the one planet in each local universe whereon a Creator Son elects to make his mortal bestowal.

20:5.5 (228.2) Understanding more about the bestowal Sons, you discern why so much interest attaches to Urantia in the history of Nebadon. Your small and insignificant planet is of local universe concern simply because it is the mortal home world of Jesus of Nazareth. It was the scene of the final and triumphant bestowal of your Creator Son, the arena in which Michael won the supreme personal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20:5.6 (228.3) At the headquarters of his local universe a Creator Son, especially after the completion of his own mortal bestowal, spends much of his time in counseling and instructing the college of associate Sons, the Magisterial Sons and others. In love and devotion, with tender mercy and affectionate consideration, these Magisterial Sons bestow themselves upon the worlds of space. And in no way are these planetary services inferior to the mortal bestowals of the Michaels. It is true that your Creator Son selected for the realm of his final adventure in creature experience one which had had unusual misfortunes. But no planet could ever be in such a condition that it would require the bestowal of a Creator Son to effect its spiritual rehabilitation. Any Son of the bestowal group would have equally sufficed, for in all their work on the worlds of a local universe the Magisterial Sons are just as divinely effective and all wise as would have been their Paradise brother, the Creator Son.

20:5.7 (228.4) Though the possibility of disaster always attends these Paradise Sons during their bestowal incarnations, I have yet to see the record of the failure or default of either a Magisterial or a Creator Son on a mission of bestowal. Both are of origin too close to absolute perfection to fail. They indeed assume the risk, really become like the mortal creatures of flesh and blood and thereby gain the unique creature experience, but within the range of my observation they always succeed. They never fail to achieve the goal of the bestowal mission. The story of their bestowal and planetary service throughout Nebadon constitutes the most noble and fascinating chapter in the history of your local universe.

제 6 장. 필사자-증여 생애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 아들로써 필사 육신화를 위해 준비되는, 그 증여 행성에서 어머니에게 태어나는 그 방법은, 하나의 우주적 신비이다; 이 아들별 기법의 작용을 감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확실하게 실패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삶에 대한 숭고한 지식이 너희 혼속에 잠기게 하라, 그러나 네바돈의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쓸모없는 깊은 사색에 사고력을 소모하지는 말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업적들이 신성한 본성에게는 가능하다는 지식과 확신 속에 기쁨을 향유하고 그러한 현상을 가져온 신성한 지혜가 채택한 그 기법에 관해 쓸데없이 짐작하는 일에는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

필사자-증여 임무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은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항상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의 남자아이로 자라난다. 최극 봉사의 이들 아들들 모두는 인간 존재가 이루는 것과 똑같이 유아기로부터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어간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태어난 그 종족의 인간들을 닮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그 영역들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탄원한다.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인간의-신성의 아들들은 오직 한 가지 예외를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산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그 세계들에서 자손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에게 부과된 우주적 제한이다.

예수가 너희 세계에서 목수의 아들로써 일하였던 것처럼,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도 그들의 증여 행성들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노동한다. 너희는 시간의 진화적 행성 중 어느 하나에서 그의 증여 기간 동안 어떤 파라다이스 아들이 가져보지 못한 직업에 대해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증여 아들이 필사자 삶의 체험을 숙달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조율의 완전을 성취할 때, 거기에서 그는 육신의 그의 형제들의 혼들에 영감을 주고 마음을 밝혀주도록 계획된 그의 행성 임무의 부분을 시작한다. 교사들로서, 이 아들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세계들의 필사 종족들의 영적 깨우침에 배타적으로 헌신한다.

미가엘들과 아보날들의 필사자-증여 생애들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교될 만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치안법관 아들은 결코, 너희 창조자 아들이 육신으로 유란시아에서 했던 것처럼,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이미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았다.”라고 선언한다. 치안법관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로써 직접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신화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항상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파라다이스 아들들로서

6. THE MORTAL-BESTOWAL CAREERS

20:6.1 (228.5) The method whereby a Paradise Son becomes ready for mortal incarnation as a bestowal Son, becomes enmothered on the bestowal planet, is a universal mystery; and any effort to detect the working of this Sonarington technique is doomed to meet with certain failure. Let the sublime knowledge of the mortal life of Jesus of Nazareth sink into your souls, but waste no thought in useless speculation as to how this mysterious incarnation of Michael of Nebadon was effected. Let us all rejoice in the knowledge and assurance that such achievements are possible to the divine nature and waste no time on futile conjectures about the technique employed by divine wisdom to effect such phenomena.

20:6.2 (229.1) On a mortal-bestowal mission a Paradise Son is always born of woman and grows up as a male child of the realm, as Jesus did on Urantia. These Sons of supreme service all pass from infancy through youth to manhood just as does a human being. In every respect they become like the mortals of the race into which they are born. They make petitions to the Father as do the children of the realms in which they serve. From a material viewpoint, these human-divine Sons live ordinary lives with just one exception: They do not beget offspring on the worlds of their sojourn; that is a universal restriction imposed on all orders of the Paradise bestowal Sons.

20:6.3 (229.2) As Jesus worked on your world as the carpenter's son, so do other Paradise Sons labor in various capacities on their bestowal planets. You could hardly think of a vocation that has not been followed by some Paradise Son in the course of his bestowal on some one of the evolutionary planets of time.

20:6.4 (229.3) When a bestowal Son has mastered the experience of living the mortal life, when he has achieved perfection of attunement with his indwelling Adjuster, thereupon he begins that part of his planetary mission designed to illuminate the minds and to inspire the souls of his brethren in the flesh. As teachers, these Sons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spiritual enlightenment of the mortal races on the worlds of their sojourn.

20:6.5 (229.4) The mortal-bestowal careers of the Michaels and the Avonals, while comparable in most respects, are not identical in all: Never does a Magisterial Son proclaim, “Whosoever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as did your Creator Son when on Urantia and in the flesh. But a bestowed Avonal does declare, “Whos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Eternal Son of God.” The Magisterial Sons are not of immediate descent from the Universal Father, nor do they incarnate subject to the Father's will; always do they bestow themselves as Paradise Sons subject to the will of

자신들을 증여한다.

증여 아들들, 창조자 또는 치안법관이 죽음의 입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은 제3일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는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물렀던 그 창조자 아들이 당했던 비극적인 종말을 그들이 항상 맞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사렛 예수가 당하였던 색다르고 유별나게 잔인한 체험은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로서 지역적으로 알려지게 하였다. 그러한 비인간적 취급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사려 깊은 접수를 그들에게 잘 제공하여 왔으며, 그들에게 폭력적인 죽음을 부과하지 않고 그들의 필사자 생애를 완결하고, 그 시대를 종결하고, 잠자는 생존자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섭리시대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증여 아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고, 영역들의 필사자들의 실제적 체험 전체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그 죽음이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의 요구조건이 아니다.

증여 아들들은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입구를 통과해 지나가는데, “엄격한 공의(公義)” 또는 “신성한 진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필사자 체험의 행성들에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체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서 육신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증여는 행성과 우주의 꼭 필요한 것이고, 물리적 죽음은 증여 임무의 필요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필사 육신화가 완결되어지면, 봉사하였던 그 아보날은 파라다이스로 가고, 우주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배정된 지역우주로 돌아가서, 창조자 아들에 의해 인정을 받는다. 그 때 그 증여 아보날과 창조자 아들은 그 증여 세계에서 거주하는 필사 종족들의 가슴속에서 기능하도록 그들의 공동 진리의 영을 보낸다. 지역우주가 주권을 갖기 이전의 시대들에는, 이것은 창조 영에 의해 충족된, 두 아들들 모두의 공동 영이다. 그것은 미가엘의 일곱 번째 증여에 뒤따르는 지역우주 시대를 특징짓는 진리의 영광은 조금 다르다.

창조자 아들의 최종적 증여가 완성되면 그 지역우주의 아보날-증여 세계들로 그 전에 보내진 진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변하며, 더욱 확실한 주권자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필사자-증여 행성에서의 봉사를 위한 진리의 영의 해방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 후에, 치안법관의 증여로 인해 영광을 받은 각 세계는 그 치안법관 아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칠중 창조자 아들로부터 동일한 영 위로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증여 아들로써 개인적으로 육신화한 지역우주 주권자가 가졌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the Eternal Son of Paradise.

20:6.6 (229.5) When the bestowal Sons, Creator or Magisterial, enter the portals of death, they reappear on the third day. But you should not entertain the idea that they always meet with the tragic end encountered by the Creator Son who sojourned on your world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 extraordinary and unusually cruel experience through which Jesus of Nazareth passed has caused Urantia to become locally known as “the world of the cross.” It is not necessary that such inhuman treatment be accorded a Son of God, and the vast majority of planets have afforded them a more considerate reception, allowing them to finish their mortal careers, terminate the age, adjudicate the sleeping survivors, and inaugurate a new dispensation, without imposing a violent death. A bestowal Son must encounter death, must pass through the whole of the actual experience of mortals of the realms, but it is not a requirement of the divine plan that this death be either violent or unusual.

20:6.7 (229.6) When bestowal Sons are not put to death by violence, they voluntarily relinquish their lives and pass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not to satisfy the demands of “stern justice” or “divine wrath,” but rather to complete the bestowal, “to drink the cup” of the career of incarnation and personal experience in all that constitutes a creature's life as it is lived on the planets of mortal existence. Bestowal is a planetary and a universe necessity, and physical death is nothing more than a necessary part of a bestowal mission.

20:6.8 (230.1) When the mortal incarnation is finished, the Avonal of service proceeds to Paradise, is accepted by the Universal Father, returns to the local universe of assignment, and is acknowledged by the Creator Son. Thereupon the bestowal Avonal and the Creator Son send their conjoint Spirit of Truth to function in the hearts of the mortal races dwelling on the bestowal world. In the presovereignty ages of a local universe, this is the joint spirit of both Sons, implemented by the Creative Spirit. It differs somewhat from the Spirit of Truth which characterizes the local universe ages following a Michael's seventh bestowal.

20:6.9 (230.2) Upon the completion of a Creator Son's final bestowal the Spirit of Truth previously sent into all Avonal-bestowal worlds of that local universe changes in nature, becoming more literally the spirit of the sovereign Michael. This phenomenon takes place concurrently with the liberation of the Spirit of Truth for service on the Michael-mortal-bestowal planet. Thereafter, each world honored by a Magisterial bestowal will receive the same spirit Comforter from the sevenfold Creator Son, in association with that Magisterial Son, which it would have received had the local universe Sovereign personally incarnated

as its bestowal Son.

제 7 장. 삼위일체 교사 아들

개인적으로 매우 높고 영적으로 매우 높은 이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존재로서 나아오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에서 데이날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혈통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구원자별에서는 그들이 때로 파라다이스 영적 아들들로 명명되기도 한다.

교사 아들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우주 인구조사 방송에 의하면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들의 숫자는 210억 명보다 조금 많으며, 이것은 파라다이스 예비자들을 제외한 것인데, 그것은 실존하는 전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3분의 1이상을 포함한다.

아들관계의 데이날 계층은 지역우주 또는 초우주 관리-행정의 유기적인 일부분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은 창조자들 또는 회복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관들 또는 통치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도덕적 깨우침과 영적 발전과 관계되는 만큼 그렇게 우주 관리-행정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우주 교육자들인데, 모든 영역들의 영적 각성과 도덕적 안내에 전념한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의 그것과 간밀하게 내적관계되어 있고 창조체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상승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삼위일체의 이들 아들들은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갖고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그들이 우주 아버지의 본성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우주들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지역 창조계에서는 그들이 무한한 영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우주들에서 그들은 봉사자의 체현화이며 지혜의 재량이다.

그들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미가엘들과 아보날들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중앙우주에서 어떤 예비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로 직접 보내지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 우주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다. 이 진화 영역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에 있어서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연관된 치안법관 아들들의 병합된 영적 영향을 활용하는데, 왜냐하면 데이날들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영적 흡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 THE TRINITY TEACHER SONS

20:7.1 (230.3) These highly personal and highly spiritual Paradise Son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known in Havona as the order of Daynals. In Orvonton they are of record as Trinity Teacher Sons, so named because of their parentage. On Salvington they are sometimes denominated the Paradise Spiritual Sons.

20:7.2 (230.4) In numbers the Teacher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The last universal census broadcast gave the number of these Trinity Sons functioning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s a little more than twenty-one billion, and this is exclusive of the Paradise reserves, which include more than one third of all Trinity Teacher Sons in existence.

20:7.3 (230.5) The Daynal order of sonship is not an organic part of the local or superuniverse administrations. Its members are neither creators nor retrievers, neither judges nor rulers. They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universe administration as with moral enlightenment and spiritual development. They are the universal educators, being dedicated to the spiritual awakening and moral guidance of all realms. Their ministry is intimately interrelated with that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aradise ascension of creature beings.

20:7.4 (230.6) These Sons of the Trinity partake of the combined natures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but in Havona they seem more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uperuniverses they seem to portray the nature of the Eternal Son, while in the local creations they appear to show forth the character of the Infinite Spirit. In all universes they are the embodiment of service and the discretion of wisdom.

20:7.5 (230.7) Unlike their Paradise brethren, Michaels and Avonals, Trinity Teacher Sons receive no preliminary training in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dispatched directly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and from there are commissioned for service in some local universe. In their ministry to these evolutionary realms they utilize the combined spiritual influence of a Creator Son and the associated Magisterial Sons, for the Daynals do not possess a spiritual drawing power in and of themselves.

제 8 장. 데이날들의 지역우주 사명활동

8. LOCAL UNIVERSE MINISTRY OF THE DAYNALS

파라다이스 영적 아들들은 독특한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며 오직 유일한 삼위일체 창조체들만이 이원(二元)-기원 우주들의 처리행위와 매우 완벽하게 연관되게 되어 있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과 영적 존재들의 비교적 낮은 존재들에 대한 교육적 사명활동에 애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지역체계에서 시작하며, 체험과 성취에 따라, 별자리 봉사를 통하여 지역 창조의 가장 높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안쪽을 향하여 나아간다. 증명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우주들을 대표하는 영적 대사(大使)들이 된다.

네바돈에 있는 교사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수천 명의 그들이 있다. 멜기세덱 학교들에 있는 부서들의 우두머리들 중 많은 숫자가 이 계층에 속하는 반면, 정식으로 구성된 구원자별 대학의 병합된 참모진에는 이 아들들을 포함하여 100,000명 이상이 있다. 많은 숫자들이 다양한 모른시아-훈련 세계들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영적 그리고 지적 증진에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세라핌천사 존재들 그리고 다른 원주민들에 대한 훈련에도 똑같이 관여하고 있다. 그들의 보좌관들 대부분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계급들로부터 소집되었다.

교사 아들들은 전초기지의 파수자들의 임무로부터 별 연구자들의 임무에 이르기까지, 우주 봉사의 모든 종속된 위상에서의 분별된-자격과 인증을 위하여 모든 검사를 운영하고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교수진을 구성한다. 그들은 행성 과정들로부터 구원자별의 고등 지혜 대학에 이르기까지, 긴 훈련 과정을 수행한다. 노력과 달성을 나타내는 승인이 모두에게, 지혜와 진리의 이 모험여행들을 완료한 상승하는 필사자 또는 열망하는 케루빔들에게 수여된다.

모든 우주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들 모두는 항상-충실하고 우주적으로 유능한 이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영개인성들, 심지어는 하느님의 아들들 자신의 믿을 만하고 참된 교사들에 대한 고귀한 선생들이다. 그러나 교사 아들들의 임무들과 기능들에 대한 끝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데이날-아들관계 활동들의 광대한 권역은 너희가 지능적으로 더 진보할 때, 그리고 너희 행성의 영적 고립이 종료된 후에 유란시아에 더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제 9 장. 데이날들의 행성 봉사

진화세계에서의 사건들의 진보가 영적 시대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낼 때,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항상 이 봉사에 자발적으로 나선다.

20:8.1 (231.1) The Paradise Spiritual Sons are unique Trinity-origin beings and the only Trinity creatures to be so completely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the dual-origin universes. They are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 educational ministry to mortal creatures and the lower orders of spiritual beings. They begin their labors in the local systems and, in accordance with experience and achievement, are advanced inward through the constellation service to the highest work of the local creation. Upon certification they may become spiritual ambassadors representing the local universes of their service.

20:8.2 (231.2) The exact number of Teacher Sons in Nebadon I do not know; there are many thousands of them. Many of the heads of departments in the Melchizedek schools belong to this order, while the combined staff of the regularly constituted University of Salvington embraces over one hundred thousand including these Sons. Large numbers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morontia-training worlds, but they are not wholly occupied with the spiritual and intellectual advancement of mortal creatures; they are equally concerned with the instruction of seraphic beings and other natives of the local creations. Many of their assistants are drawn from the ranks of the creature-trinitized beings.

20:8.3 (231.3) The Teacher Sons compose the faculties who administer all examinations and conduct all tests for the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all subordinate phases of universe service, from the duties of outpost sentinels to those of star students. They conduct an age-long course of training, ranging from the planetary courses up to the high College of Wisdom located on Salvington. Recognition indicative of effort and attainment is granted to all, ascending mortal or ambitious cherubim, who complete these adventures in wisdom and truth.

20:8.4 (231.4) In all universes all the Sons of God are beholden to these ever-faithful and universally efficient Trinity Teacher Sons. They are the exalted teachers of all spirit personalities, even the tried and true teachers of the Sons of God themselves. But of the endless details of th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Teacher Sons I can hardly instruct you. The vast domain of Daynals-sonship activities will be better understood on Urantia when you are more advanced in intelligence, and after the spiritual isolation of your planet has been terminated.

9. PLANETARY SERVICE OF THE DAYNALS

20:9.1 (231.5) When the progress of events on an evolutionary world indicates that the time is ripe to initiate a spiritual age, the Trinity Teacher Sons

너희는 아들관계의 이 계층에 대해 잘 모를 것인데 왜냐하면 유란시아는 영적 시대, 조화우주 계층의 1,000년 기간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아들들은 너희 구체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교사의 체제와 관련되는 정형화된 계획을 목적으로 너희 세계를 지금이라 하더라도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 이곳 거주민들이 물질주의의 족쇄로부터 그리고 동물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상당한 해방을 이룬 후에 마땅히 나타날 것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에 대해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지도 않으며 산 자들을 옮기지도 않지만, 각각의 행성 임무 때마다 그들은 이 봉사들을 수행할 치안법관 아들을 동반한다. 교사 아들들은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들의 여명기가 도달하면, 영적 시대의 시작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물질적 지식과 임시적 지혜에 대한 영적 상대자들을 실제화시킨다.

교사 아들들은 그들의 방문 행성들에 행성 시간으로 1,000년 동안 머문다. 한 명의 교사 아들이 행성의 1,000년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의 계층에 속하는 70명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날들은 필사 존재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육신화하거나 아니면 물질화 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연관하는 지역우주 개인성들이 찬란한 저녁별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방문하는 세계들과 접촉이 지속된다.

데이날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여러 번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의 마지막 임무 이후에 그 행성은 빛과 생명의 구체의 정착된 지위, 현재 우주시대의 필사자-거주되는 세계들 전체의 진화적 목표로 안내될 것이다. 최종의 필사자 무리단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구체들과 할 일이 많으며, 그들의 행성 활동들은 교사 아들들의 그것들을 암시한다. 정말로 데이날 아들관계의 전체 계층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창조계에서의 최종자 활동의 모든 위상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우리가 종종 미래 우주의 계시되지 않은 생애의 최종자와 그들의 가능한 관계적-연합에 대하여 추측하도록 이끄는, 진화하는 상승의 비교적 초기 단계들을 통한 필사자 진보의 체제와 매우 완벽하게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초우주들의 행정-관리자들이 일부는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이고 일부는 삼위일체에-포용된 상승하는 진화적 창조체들인 것을 관찰한다. 우리는 어떤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에서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예비 훈련이 될 수 있는 시간-관계적-연합의 체험을 얻는 일에 삼위일체 아들과 최종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유버사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초우주들이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진화 필사자들의 삶과 그토록 오래 연관되어 왔고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문제들

always volunteer for this servic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is order of sonship because Urantia has never experienced a spiritual age, a millennium of cosmic enlightenment. But the Teacher Sons even now visit your world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plans concerning their projected sojourn on your sphere. They will be due to appear on Urantia after its inhabitants have gained comparative deliverance from the shackles of animalism and from the fetters of materialism.

20:9.2 (231.6) Trinity Teacher Sons have nothing to do with terminating planetary dispensations. They neither judge the dead nor translate the living, but on each planetary mission they are accompanied by a Magisterial Son who performs these services. Teacher Sons are wholly concerned with the initiation of a spiritual age, with the dawn of the era of spiritual realities on an evolutionary planet. They make real the spiritual counterparts of material knowledge and temporal wisdom.

20:9.3 (232.1) The Teacher Sons usually remain on their visitation planets for one thousand years of planetary time. One Teacher Son presides over the planetary millennial reign and is assisted by seventy associates of his order. The Daynals do not incarnate or otherwise so materialize themselves as to be visible to mortal beings; therefore is contact with the world of visitation maintaine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associated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20:9.4 (232.2) The Daynals may return many times to an inhabited world, and following their final mission the planet will be ushered into the settled status of a sphere of light and life, the evolutionary goal of all the mortal-inhabited world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has much to do with the spheres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their planetary activities touch upon those of the Teacher Sons. Indeed, the whole order of Daynal sonship is intimately connected with all phases of finaliter activities in the evolutionary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0:9.5 (232.3) The Trinity Teacher Sons seem to be so completely identified with the regime of mortal progression through the earlier stages of evolutionary ascension that we are often led to speculate regarding their possible association with the finaliters in the undisclosed career of the future universes. We observe that the administrators of the superuniverses are part Trinity-origin personalities and part Trinity-embraced ascendant evolutionary creatures. We firmly believe that the Teacher Sons and the finaliters are now engaged in acquiring the experience of time-association which may be the preliminary training to prepare them for close association in some unrevealed future destiny. On Uversa it is our belief that, when the superuniverses are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과 매우 철저하게 친숙해진 이 파라다이스 교사 아들들이, 아마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과 영원한 관계적-연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life, these Paradise Teacher Sons, who have become so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problems of evolutionary worlds and have been so long associated with the career of evolutionary mortals, will probably be transferred to eternal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제 10 장.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연합된 사명활동

10. UNITED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 전체는 기원에서 그리고 본성에서 신성하다. 각 세계를 위한 각 파라다이스 아들의 업무는 마치 봉사하는 아들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같다.

20:10.1 (232.4) All the Paradise Sons of God are divine in origin and in nature. The work of each Paradise Son in behalf of each world is just as if the Son of service were the first and only Son of God.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권역들에 신(神)의 세 개인들의 대리 본성들에 의한 신성한 표현이다. 창조자, 치안법관, 그리고 교사 아들들은 상승 잠재를 갖는 사람의 자손들 그리고 다른 우주 전체 창조체들에 대한 영원한 신(神)들의 선물들이다. 이 하느님의 아들들은 영원의 높은 영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의 창조체들을 돕는 역할에 끊임없이 헌신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다.

20:10.2 (232.5) The Paradise Sons are the divine presentation of the acting natures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to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The Creator, Magisterial, and Teacher Sons are the gifts of the eternal Deities to the children of men and to all other universe creatures of ascension potential. These Sons of God are the divine ministers who are unceasingly devoted to the work of helping the creatures of time attain the high spiritual goal of eternity.

창조자 아들들에서 우주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와 혼합되고 미가엘들의 창조적 힘과 사랑 넘치는 사명활동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주권으로 지역우주들에게 계시된다. 치안법관 아들들에서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과 연합된 영원한 아들의 자비는 심판, 봉사 그리고 중여의 이 아보날들의 생애들에서 진화적 권역들에게 계시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서,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사랑과 자비와 사명활동은 가장 높은 시간-공간 가치-차원들에서 조화-협동을 이루며 살아있는 진리와 신성한 선(善) 그리고 참된 영적(靈的) 아름다움으로서 우주들에게 제시된다.

20:10.3 (232.6) In the Creator Sons th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is blended with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and is disclosed to the local universes in the creative power, loving ministry, and understanding sovereignty of the Michaels. In the Magisterial Sons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united with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is revealed to the evolutionary domains in the careers of these Avonals of judgment, service, and bestowal. In the Trinity Teacher Sons the love, mercy, and ministry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re co-ordinated on the highest time-space value-levels and are presented to the universes as living truth, divine goodness, and true spiritual beauty.

지역우주들에서 아들관계의 이 계층들은 공간의 창조체들에게 파라다이스의 신(神)들의 계시의 영향을 끼치도록 협동한다: 지역우주 아버지로서,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무한 성격을 묘사한다. 자비의 중여 아들로서, 아보날들은 무한한 연민을 가진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을 계시한다.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참된 선생들로서, 삼위일체 데이날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교사 개인성을 계시한다. 그들의 신성하게 완전한 협동으로, 미가엘들과 아보날들과 데이날들은 시간-공간 우주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게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과 주권의 실재화구현 그리고 계시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삼원적 활동들의 조화로,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섬으로부터 미지의 공간 심연 속으로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신성의 끝없는 확대를 그들이 따라가며 하느님의 이 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신(神)의 개인성들의 선봉으로서 항상 기능한다.

20:10.4 (233.1) In the local universes these orders of sonship collaborate to effect the revelation of the Deities of Paradise to the creatures of space: As the Father of a local universe, a Creator Son portrays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 bestowal Sons of mercy, the Avonals reveal the matchless nature of the Eternal Son of infinite compassion. As the true teachers of ascending personalities, the Trinity Daynal Sons disclose the teacher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ir divinely perfect co-operation, Michaels, Avonals, and Daynals are contributing to the actualization and revelation of the personality and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in and to the time-space universes. In the harmony of their triune activities these Paradise Sons of God ever function in the vanguard of the personalities of Deity as they follow the never-ending expansion of the div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from the everlasting Isle of Paradise into the unknown depths of space.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
되었음]

20:10.5 (233.2)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 21 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 020

유랜시아 책

022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1 편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

섹션

소개

제 1 장. 창조자 아들의 기원과 본성

제 2 장.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제 3 장. 지역우주 주권

제 4 장. 미가엘 증여

제 5 장. 우주에 대한 주(主)아들들의 관계

제 6 장. 주(主)미가엘들의 운명

소개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을 만드는 자들이며 통치자들이다. 이들 우주 창조자이고 주권자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의 특징들을 체현하는 이원적(二元的) 기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 창조자 아들은 서로 다르며; 각각은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 있어서 독특하며; 각각은 그가 기원된 완전한 신(神) 이상의 “오직 하나 낳은 아들”이다.

지역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그리고 완전케 하는 광대한 작업에 있어서, 이 높은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의 지속적 승인을 항상 받는다. 창조자 아들들과 그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동적인 동시에 최상급 것이다. 자신들의 신성한 자손을 향한 신(神) 부모들의 심오한 애정은 필사자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품게 하는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그 사랑의 원천이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들로서 개인성구현된다. 그들이 그들의 우주들을 설립하려고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아갈 때, 그들은 창조자 미가엘들로서 알려진다. 최극 권한에 안정하면, 그들은 주(主)미가엘들이라고 불린다. 때로는 우리가 네바돈의 너희 우주의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언제나

PAPER 21

THE PARADISE CREATOR SON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Creator Sons

2. The Creators of Local Universes

3. Local Universe Sovereignty

4. The Michael Bestowals

5. Relation of Master Sons to the Universe

6. Destiny of the Master Michaels

INTRODUCTION

21:0.1 (234.1) THE Creator Sons are the makers and rulers of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se universe creators and sovereigns are of dual origin,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But each Creator Son is different from every other; each is unique in nature as well as in personality; each is the “only-begotten Son” of the perfect deity ideal of his origin.

21:0.2 (234.2) In the vast work of organizing, evolving, and perfecting a local universe, these high Sons always enjoy the sustaining approv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lationship of the Creator Sons with their Paradise Father is touching and superlative. No doubt the profound affection of the Deity parents for their divine progeny is the wellspring of that beautiful and well-nigh divine love which even mortal parents bear their children.

21:0.3 (234.3) These primary Paradise Sons are personalized as Michaels. As they go forth from Paradise to found their universes, they are known as Creator Michaels. When settled in supreme authority, they are called Master Michaels. Sometimes we refer to the sovereign of your universe of Nebadon as Christ Michael. Always

지나 그들의 계층과 본성에서의 첫 번째 아들을 정의하는 존재인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통치한다.

기원적 또는 첫째-탄생 미가엘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육신화를 결코 체험한 적이 없지만, 외부 구체들로부터 중앙 창조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 회로로 나아가면서,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상승하는 영적 창조체의 체험을 그는 일곱 번에 걸쳐 다 통과하였다. 미가엘의 계층은 대우주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다 알며; 미가엘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자녀들의 필수적 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상 신성한 본성뿐만 아니라 너희 본성에도, 다시 말해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본성에 참여자들이다

기원적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주재하는 우두머리이다. 이 우주들의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한 토의들에 참여하고 어버이로서의 현존으로 모인 15만 명의 창조자 아들들이 영원한 섬에서 열린 임시 비밀회의에 대한 우주적 방송을 얼마 전에 우리가 유버사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칠중 중어 아들들의 선택된 집단이었다.

제 1 장. 창조자 아들의 기원과 본성

영원한 아들의 절대적인 영적 관념화 작용의 충만함이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 개인성 개념의 충만함과 만날 때, 그러한 창조적 연합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달성될 때, 영의 그러한 절대 정체성과 개인성 개념의 그러한 무한한 하나 됨이 발생할 때, 바로 그 때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성의 어느 것도 또는 어느 하나의 특권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성장 존재인 새롭고도 기원적인 창조자 아들로, 그들의 연합이 힘과 완전함을 지닌 이 새로운 창조자 개인성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이상과 힘이 넘치는 관념의 오직-하나 낳은 아들이 번쩍 나타난다.

각각의 창조자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의 항상-실존하는 창조자들의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두 마음들의 기원적 개념의 완전한 연합으로 오직하나 낳은 그리고 오직하나 낳을 자손이다. 다르게는 그러한 아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창조자 아들은, 모든 영원에 두루, 이 미가엘 아들이 실존하도록 연합된 그 신성한 창조적 잠재들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또는 그것으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실체의 모든 가능성의 모든 특성의 모든 단계 전체에 대한 분별불가적이고, 완결되고, 최종적인 표현이며, 그리고 체현달성이기 때문이다. 각 창조자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연합된 신(神) 개념들의 절대이다.

and forever do they reign after the “order of Michael,” that being the designation of the first Son of their order and nature.

21:0.4 (234.4) The original or first-born Michael has never experienced incarnation as a material being, but seven times he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spiritual creature ascent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advancing from the outer spheres to the innermost circuit of the central creation. The order of Michael knows the grand universe from one end to the other; there is no essential experience of any of the children of time and space in which the Michaels have not personally participated; they are in fact partakers not only of the divine nature but also of your nature, meaning all natures,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21:0.5 (234.5) The original Michael is the presiding head of the primary Paradise Sons when they assemble for conference at the center of all things. Not long since on Uversa we recorded a universal broadcast of a conclave extraordinary on the eternal Isle of one hundred fifty thousand Creator Sons assembled in the parental presence and engaged in deliberations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 of the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is was a selected group of Sovereign Michaels, sevenfold bestowal Sons.

1. ORIGIN AND NATURE OF CREATOR SONS

21:1.1 (234.6) When the fullness of absolute spiritual ideation in the Eternal Son encounters the fullness of absolute personality concept in the Universal Father, when such a creative union is finally and fully attained, when such absolute identity of spirit and such infinite oneness of personality concept occur, then, right then and there, without the loss of anything of personality or prerogative by either of the infinite Deities, there flashes into full-fledged being a new and original Creator Son, the only-begotten Son of the perfect ideal and the powerful idea whose union produces this new creator personality of power and perfection.

21:1.2 (235.1) Each Creator Son is the only-begotten and only-begettable offspring of the perfect union of the original concepts of the two infinite and eternal and perfect minds of the ever-existent Creato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 never can be another such Son because each Creator Son is the unqualified, finished, and final expression and embodiment of all of every phase of every feature of every possibility of every divine reality that could, throughout all eternity, ever be found in, expressed by, or evolved from, those divine creative potentials which united to bring this Michael Son into existence. Each Creator Son is the absolute of the united deity concepts which constitute his divine origin.

이들 창조자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들은, 원칙적으로, 두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속성들로부터 똑같이 도출되었다.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충만함을 모두 띠고 있다, 그러나 우주들에서 미가엘 기능들의 실천적 작업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자 아들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더욱 비슷한 듯 하며; 다른 이들은 아들 하느님과 더 비슷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에서의 관리·행정 방향은 그것의 창조자와 통치하는 아들이 영원한 어머니 아들의 본성과 성격을 더욱 닮았음을 시사한다. 어떤 우주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을 똑같이 닮는 듯한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에 의해 주재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찰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비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사실의 기록이다.

나는 실존하는 창조자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700,000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정확하게 700,000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있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음을 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우주 시대의 운명된 계획들이 한 명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삼위일체의 조언하는 대사로서 각 지역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을 관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조자 아들들의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고정된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그러나 700,000명 이상의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제 2 장.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1차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들 각각의 권역들,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들, 진화적인 일곱 초우주들의 기본적인 창조적 단위들의 설계자들, 창조자들, 건축자들, 그리고 관리행정자들이다. 창조자 아들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의 공간 위치를 선택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가 비록 그의 우주의 물리적 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활동의 초우주에 위치한 다양한 창조계에서 그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의 노력에 대한 연구에 골몰한 관찰의 긴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미가엘 아들은 파라다이스 관찰과 하보나 훈련의 길고도 독특한 그의 체험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창조자 아들이 우주 조성의 모험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 자신의 조직인 지역우주의—실질적인 하느님—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출발할 때, 첫 번째로, 그는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21:1.3 (235.2) The divine natures of these Creator Sons are, in principle, derived equally from the attributes of both Paradise parents. All partake of the fullnes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of the creative prerogatives of the Eternal Son, but as we observe the practical outworking of the Michael functions in the universes, we discern apparent differences. Some Creator Sons appear to be more like God the Father; others more like God the Son. For example: The trend of administra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suggests that its Creator and ruling Son is one whose nature and character more resemble that of the Eternal Mother Son. It should be further stated that some universes are presided over by Paradise Michaels who appear equally to resemble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And these observations are in no sense implied criticisms; they are simply a recording of fact.

21:1.4 (235.3) I do not know the exact number of Creator Sons in existence, but I have good reasons for believing that there are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 Now, we know that there are exactly seven hundred thousand Unions of Days and no more are being created. We also observe that the ordained plan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seem to indicate that one Union of Days is to be stationed in each local universe as the counseling ambassador of the Trinity. We note further that th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Creator Sons already exceeds the stationary number of the Unions of Days. But concerning the destiny of the Michaels beyond seven hundred thousand, we have never been informed.

2. THE CREATORS OF LOCAL UNIVERSES

21:2.1 (235.4) The Paradise Sons of the primary order are the designers, creators, builders, and administrators of their respective domains,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basic creative units of the seven evolutionary superuniverses. A Creator Son is permitted to choose the space site of his future cosmic activity, but before he may begin even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his universe, he must spend a long period of observation devoted to the study of the efforts of his older brothers in various creations located in the superuniverse of his projected action. And prior to all this, the Michael Son will have completed his long and unique experience of Paradise observation and Havona training.

21:2.2 (235.5) When a Creator Son departs from Paradise to embark upon the adventure of universe making, to become the head — virtually the God —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own organization, then, for the first time, he finds himself in intimate contact with, and in many

것들의 중심에서 아버지 및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창조자 아들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자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창조자 아들은 무한한 영의 창조 딸을 동반하며, 그녀는 신성한 사명활동자, 새로운 그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미가엘 아들의 출발은 그의 창조자 특권들을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해방시킨다, 단지 이들 근원이며 중심의 선재(先在)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어떤 한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된 다른 힘들과 현존들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전제된다.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만능인 지역우주의 아버지의 창조자 특권들 중에서, 이들 한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물질은 무한한 영에 의해 지배된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새로운 것의 형태들이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물질의 새로운 어떤 변환들이든지 시도되기 전에, 창조자 아들은 무한한 영의 승낙과 그리고 실용적인 협동을 획득해야만 한다.

2. 창조체 설계들 및 유형들은 영원한 아들에 의해 통제된다. 창조자 아들이 어떤 새로운 존재 유형의, 어떤 새로운 창조체 설계의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영원이며 근원인 어머니 아들의 허락을 획득해야만 한다.

3.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설계되고 증여된다.

마음의 유형들과 원형들들은 존재의 창조체-이전(以前) 요소들로 결정된다. 마음은 창조체를 (개인적이건 또는 아니건) 구성하도록 연관되어진 이후에, 셋째근원이며 중심이 부여한 자질이며,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의 차원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대한 마음 사명활동의 우주 근원이다.

영 설계들 및 유형에서의 통제는 그들의 현시 활동의 차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또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아버지, 아들, 영—의 이전-삼위일체 영 자질들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러한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그가 선택한 우주의 공간 부지의 소유를 확보하였을 때; 우주 물질화 작용의 초기 문제와 그리고 총체적 평형의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보완적인 무한한 영의 딸과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작업 연합을 형성하였을 때—그 때에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은 그들의 지역우주 자녀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창조하도록 고안된 그 연락을 시작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창조 영 초점화 구현은 본질적으로 변하여,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개인적 본질특성들을 나타낸다.

respects dependent upo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Infinite Spirit, though abiding with the Father and the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is destined to function as the actual and effective helper of each Creator Son. Therefore is each Creator Son accompanied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that being who is destined to become the Divine Minister, the Mother Spirit of the new local universe.

21:2.3 (236.1) The departure of a Michael Son on this occasion forever liberates his creator prerogatives from the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subject only to certain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e-existence of these Sources and Centers and to certain other antecedent powers and presences. Among these limitations to the otherwise all-powerful creator prerogatives of a local universe Father are the following:

21:2.4 (236.2) 1. *Energy-matter* is dominated by the Infinite Spirit. Before any new forms of things, great or small, may be created, before any new transformations of energy-matter may be attempted, a Creator Son must secure the consent and working co-operation of the Infinite Spirit.

21:2.5 (236.3) 2. *Creature designs and types* are controlled by the Eternal Son. Before a Creator Son may engage in the creation of any new type of being, any new design of creature, he must secure the consent of the Eternal and Original Mother Son.

21:2.6 (236.4) 3. *Personality* is designed and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21:2.7 (236.5) The types and patterns of *mind* are determined by the precreature factors of being. After these have been associated to constitute a creature (personal or otherwise), mind is the endowmen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source of mind ministry to all beings below the level of Paradise Creators.

21:2.8 (236.6) The control of *spirit* designs and types depends on the level of their manifestation. In the last analysis, spiritual design is controlled by the Trinity or by the pre-Trinity spirit endowments of the Trinity personalities — Father, Son, and Spirit.

21:2.9 (236.7) When such a perfect and divine Son has taken possession of the space site of his chosen universe; when the initial problems of universe materialization and of gross equilibrium have been resolved; when he has formed an effective and co-operative working union with the complemental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 then do this Universe Son and this Universe Spirit initiate that liaison which is designed to give origin to the innumerable hosts of their local universe children. In connection with this event the Creative Spirit focalization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becomes changed in nature, taking on the

모든 창조자 아들들이 신성하게 그들의 파라다이스 부모들을 닮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서로 똑같이 닮지는 않았다; 각자는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서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독점적이고 기원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각각의 권역들의 생명 계획에서의 고안건축자들이며 만드는 자임으로, 바로 이 다양성이 그들의 권역이 미가엘에서-파생되는, 창조되거나 나중에 그곳에서 진화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존의 모든 형태와 위상으로 또한 다양하게 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역우주들 태생의 창조체 계층들은 매우 다채롭다. 어떤 두 곳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원(二元)-기원 토착 존재들에 의해 관리-운영되거나 거주되지 않는다. 어떤 초우주 안에서도, 그들의 선천적인 속성들 중 한쪽 절반은, 한결같은 창조영들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며; 다른 절반은, 다양한 창조자 아들들로부터 기인되며 서로 다르다. 한편 그러한 다양성은 오로지 창조영에서 기원된 창조체나, 또는 중앙우주 및 초우주 토착 존재인 저들 수입된 존재들의 특성은 아니다.

미가엘 아들이 그의 우주를 비울 때, 그 정부는 첫-태생 토착 존재, 지역우주 집행자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지도를 받는다. 연합으로 늘 제신이의 충고와 조언은 그러한 때에 매우 귀한 것이다. 자리를 비운 이 기간 동안, 창조자 아들은 그의 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그의 영적 현존의 전반적-통제권을 연관된 어머니 영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은, 그러한 진화적 권역의 가장 멀리까지 그녀의 양육하는 보살핌과 영적(靈的) 사명활동을 확장하면서, 항상 그 본부에 남아 있다.

확립된 물질적 창조계의 순조로운 운행하기 위해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지역우주 안에 개인적 현존으로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 여행해도 좋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우주들은 공간에 두루 휘돌아 회전한다. 그들은 시간의 자녀들로서 육신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련의 힘들을 내려놓아도 좋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영역들은 그들 각각의 중심 주위를 빙빙돈다. 어떤 물질적 조직도 파라다이스의 절대-중력 지배에 또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조화우주 전반적-통제에서 독립할 수가 없다.

제 3 장. 지역우주 주권

창조자 아들에게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된 초우주의 감독하는 주(主) 영의 확인에 따라 우주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한 조치는 물리적 소유권, 우주적 임차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최초의 그리고 자아-제한된 통치 자격 단계로부터 자아-획득한 주권의 체험적

personal qualities of the Mother Spirit of a local universe.

21:2.10 (236.8) Notwithstanding that all Creator Sons are divinely like their Paradise parents, none exactly resembles another; each is unique, diverse, exclusive, and original in *nature* as well as in personality. And since they are the architects and makers of the life plans of their respective realms, this very diversity insures that their domains will also be diverse in every form and phase of Michael-derived living existence which may be created or subsequently evolved therein. Hence the orders of creature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are quite varied. No two are administered or inhabited by dual-origin native beings who are in all respects identical. Within any superuniverse, one half of their inherent attributes are quite alike, being derived from the uniform Creative Spirits; the other half vary, being derived from the diversified Creator Sons. But such diversity does not characterize those creatures of sole origin in the Creative Spirit nor those imported beings who are native to the central or superuniverses.

21:2.11 (237.1) When a Michael Son is absent from his universe, its government is directed by the first-born native being,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local universe chief executive. The advice and counsel of the Union of Days is invaluable at such times. During these absences a Creator Son is able to invest the associated Mother Spirit with the overcontrol of his spiritual presence on the inhabited worlds and in the hearts of his mortal children. And the Mother Spirit of a local universe remains always at its headquarters, extending her fostering care and spiritual ministry to the uttermost parts of such an evolutionary domain.

21:2.12 (237.2) The personal presence of a Creator Son in his local universe is not necessary to the smooth running of an established material creation. Such Sons may journey to Paradise, and still their universes swing on through space. They may lay down their lines of power to incarnate as the children of time; still their realms whirl on about their respective centers. No material organization is independent of the absolute-gravity grasp of Paradise or of the cosmic overcontrol inherent in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3. LOCAL UNIVERSE SOVEREIGNTY

21:3.1 (237.3) A Creator Son is given the range of a universe by the consen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Such action constitutes title of physical possession, a cosmic leasehold. But the elevation of a Michael

최극위로 미가엘 아들의 상승은 우주 창조의 작업과 육신화 증여에서 그 자신의 직접적 체험들의 결과에서 온다. 증여-획득 주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한다.

창조자 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적 창조에 대한 충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현명하게 선택한다. 만일, 창조체 증여들을 통과하기 이전에, 그가 획득되지 않은 최극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의 지역우주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창조계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창조자 관계의 사실성은 주권의 충만함을 의미하지만, 미가엘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획득하기를 선택하며, 그리하여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배속된 모든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의 충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어떤 미가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참으로 자유의지의 아들들이다.

지역우주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주권은 체험적 현시활동의 여섯 혹은 일곱 단계들을 지난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최초의 대리 주권—연관된 창조 영에 의한 개인적 본질특성 취득 이전에 창조자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독자적인 잠정적 권한.

2. 공동 대리 주권—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성 성취에 수반하는 파라다이스 쌍의 공동 통치.

3. 증강하는 대리 주권—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의 창조체 증여들의 기간 동안 향상되는 권한.

4. 최극 주권—일곱 번째 증여의 완성에 따르는 정착된 권한. 네바돈에서는, 최극 주권이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증여가 완성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존재한 지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었다.

5. 증강하는 최극 주권—창조체 영역들의 대부분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으로부터 성장하는 향상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우주의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속한다.

6. 삼위일체로서의 주권—전체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에 수반하여 행사된다.

7. 계시되지 않은 주권—미래 우주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의 최초 대리 주

Son from this initial and self-limited stage of rulership to the experiential supremacy of self-earned sovereignty comes as a result of his own personal experiences in the work of universe creation and incarnated bestowal. Until the achievement of bestowal-earned sovereignty, he rules as vicegerent of the Universal Father.

21:3.2 (237.4) A Creator Son could assert full sovereignty over his personal creation at any time, but he wisely chooses not to. If, prior to passing through the creature bestowals, he assumed an unearned supreme sovereignty, the Paradise personalities resident in his local universe would withdraw. But this has never happened throughout all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1:3.3 (237.5) The fact of creatorship implies the fullness of sovereignty, but the Michaels choose to experientially *earn* it, thereby retaining the full co-operation of all Paradise personalities attached to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We know of no Michael who ever did otherwise; but they all could, they are truly freewill Sons.

21:3.4 (237.6) The sovereignty of a Creator Son in a local universe passes through six, perhaps seven, stages of experiential manifestation. These appear in the following order:

21:3.5 (237.7) 1. Initial vicegerent sovereignty — the solitary provisional authority exercised by a Creator Son before the acquirement of personal qualities by the associated Creative Spirit.

21:3.6 (237.8) 2. Conjoint vicegerent sovereignty — the joint rule of the Paradise pair subsequent to the personality achievement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21:3.7 (238.1) 3. Augmenting vicegerent sovereignty — the advancing authority of a Creator Son during the period of his seven creature bestowals.

21:3.8 (238.2) 4. Supreme sovereignty — the settled authorit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seventh bestowal. In Nebadon, supreme sovereignty dates from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It has existed just slightly over nineteen hundred years of your planetary time.

21:3.9 (238.3) 5. Augmenting supreme sovereignty — the advanced relationship growing out of the settling of a majority of the creature domains in light and life. This stage pertains to the unachieved future of your local universe.

21:3.10 (238.4) 6. Trinitarian sovereignty — exercised subsequent to the settling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21:3.11 (238.5) 7. Unrevealed sovereignty — the unknown relationships of a future universe age.

21:3.12 (238.6) In accepting the initial vicegerent

권을 받아들이에 있어서, 창조자 미가엘은 일곱 번의 창조체 증여들이 완성되고 그리고 초우주 통치자들에 의해 공인될 때까지 최종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삼위일체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만일 미가엘 아들이 의지적으로 그러한 획득되지 않은 주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증여-이전(以前)의 시대에도, 창조자 아들은 그의 권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의가 없을 때 거의 최극으로 그의 영역을 통치한다. 제한된 지배권은 주권이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거의 현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역이 없는 우주 안에서 창조자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은 반역이 있는 우주보다 더 크지 못하다; 처음 단계에서는 주권 제한들이 명백하지 않지만; 두 번째에는 그것들은 명백하다.

만일 창조자 아들의 권한 또는 관리-행정이 언제든지 도전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는 위태롭게 된다면, 그는 유지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기 위하여 영원히 서약되며,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의 개인적 창조를 끄집어내어 회복한다. 그러한 아들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창조체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비교적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교란되고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들”, 지역우주 위에 있는 차원들에서 기원된 그들이 창조자 아들을 교란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며, 또 그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 덕행은 개인성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의(正義)는 자유의지 창조체에게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증여 생애의 완성 전에 창조자 아들은 주권에 자아-부과된 제한들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그의 증여 봉사를 끝마친 후에는 그의 여러 창조체들의 형태로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졌던 그의 실제적 체험에 의해 다스린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창조체들 가운데에서 일곱 번 머물렀을 때, 증여 생애가 완결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는 우주 권한에 최극으로 정착하며; 그는 주(主)아들, 주권적 그리고 최극 통치자가 된다.

지역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을 획득하는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체험적 단계들이 포함된다:

1. 관련된 차원에서 창조체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육신화 증여되는 기법을 통하여 일곱 창조체 존재 차원들을 체험적으로 통과함.

2. 그것이 일곱 주(主) 영들 안에서 개인화되는 것처럼 파라다이스 신(神)의 칠중 의지의 각 위상에 대해 체험적 현신을 이룩함.

3. 파라다이스 신(神)의 의지에 대한 일곱 번의 현신들 중 하나의 실행과 동시적으로 창조체 차원들에서 일곱 체험들 각각을 지나감.

sovereignty of a projected local universe, a Creator Michael takes an oath to the Trinity not to assume supreme sovereignty until the seven creature bestowals have been completed and certified by the superuniverse rulers. But if a Michael Son could not, at will, assert such unearned sovereignty, there would be no meaning in taking an oath not to do so.

21:3.13 (238.7) Even in the prebestowal ages a Creator Son rules his domain well-nigh supremely when there is no dissent in any of its parts. Limited rulership would hardly be manifest if sovereignty were never challenged. The sovereignty exercised by a prebestowal Creator Son in a universe without rebellion is no greater than in a universe with rebellion; but in the first instance sovereignty limitations are not apparent; in the second, they are.

21:3.14 (238.8) If ever the authority or administration of a Creator Son is challenged, attacked, or jeopardized, he is eternally pledged to uphold, protect, defend, and if necessary retrieve his personal creation. Such Sons can be troubled or harassed only by the creatures of their own making or by higher beings of their own choosing. It might be inferred that “higher beings,” those of origin on levels above a local universe, would be unlikely to trouble a Creator Son, and this is true. But they could if they chose to. Virtue is volitional with personality; righteousness is not automatic in freewill creatures.

21:3.15 (238.9)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bestowal career a Creator Son rules with certain self-imposed limitations of sovereignty, but subsequent to his finished bestowal service he rules by virtue of his actual experience in the form and likeness of his manifold creatures. When a Creator has seven times sojourned among his creatures, when the bestowal career is finished, then is he supremely settled in universe authority; he has become a Master Son, a sovereign and supreme ruler.

21:3.16 (238.10) The technique of obtaining supreme sovereignty over a local universe involves the following seven experiential steps:

21:3.17 (238.11) 1. Experientially to penetrate seven creature levels of being through the technique of incarnated bestowal in the very likeness of the creatures on the level concerned.

21:3.18 (238.12) 2. To make an experiential consecration to each phase of the sevenfold will of Paradise Deity as it is personified in the Seven Master Spirits.

21:3.19 (239.1) 3. To traverse each of the seven experiences on the creature levels simultaneously with the execution of one of the seven consecrations to the will of Paradise Deity.

4. 각 창조체 차원에서, 파라다이스 신(神)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 지능체들에게 창조체 삶의 절정을 체험적으로 나타냄.

5. 각 창조체 차원에서, 증여 차원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에 신(神)의 칠중 의지의 한 위상을 체험적으로 제시함.

6. 신(神)의 본성 그리고 의지의 계시에 대한 헌신의 칠중 체험과 칠중 창조체 체험을 체험적으로 통합시킴.

7. 최극존재와의 새롭고도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함. 이 창조자-창조체 체험의 전체성에 대한 반향은 최극자 하느님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 최극자의 시간-공간 주권을 증강시키고 파라다이스 미가엘의 최극 지역우주 주권을 사실화시킨다.

지역우주에서 주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은 통치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칠중 태도를 묘사하고 본성을 계시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시원성에 대한 유한 납득과 창조체 인식은 그의 창조체들의 형태와 체험들 그 자신이 체험하려고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의 창조자 아들의 모험에 관계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본성과 인정 많은 권한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자들이며,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그리고 영의 관계적-연합으로, 모든 우주 영역들에 두루 모든 힘, 개인성,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우두머리이다.

제 4 장. 미가엘 증여

증여 창조자 아들들에는 일곱 집단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영역의 창조체들에게 스스로를 증여하였던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그 범위는 최초 체험으로부터 다섯 번의 추가적인 진보적 증여 구체들을 거쳐 창조체-창조자 체험의 일곱 번째 그리고 최종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아보날 증여들은 항상 필사 육신과 비슷하지만, 창조자 아들의 일곱 증여들은 존재의 일곱 창조체 차원들에게 그의 나타남을 포함하고 신(神)의 뜻과 본성의 1차 일곱 표현들에 대한 계시에 관계된다. 예외 없이, 모든 창조자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의 우주들에 대한 완결되고 최극 관할권을 그들이 맡기 전에 그들의 창조된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일곱 번 내어줄을 체험한다.

21:3.20 (239.2) 4. On each creature level, experientially to portray the acme of creature life to Paradise Deity and to all universe intelligences.

21:3.21 (239.3) 5. On each creature level, experientially to reveal one phase of the sevenfold will of Deity to the bestowal level and to all the universe.

21:3.22 (239.4) 6. Experientially to unify the sevenfold creature experience with the sevenfold experience of consecration to the revelation of the nature and will of Deity.

21:3.23 (239.5) 7. To achieve new and higher relationship with the Supreme Being. The repercussion of the totality of this Creator-creature experience augments the superuniverse reality of God the Supreme and the time-space sovereignty of the Almighty Supreme and factualizes the supreme local universe sovereignty of a Paradise Michael.

21:3.24 (239.6) In settling the question of sovereignty in a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is not only demonstrating his own fitness to rule but is also revealing the nature and portraying the sevenfold attitude of the Paradise Deities. The finite understanding and creature appreciation of the Father's primacy is concerned in the adventure of a Creator Son when he condescends to take upon himself the form and experiences of his creatures. These primary Paradise Sons are the real revealers of the Father's loving nature and beneficent authority, the same Father who, in association with the Son and the Spirit, is the universal head of all power, personality, and government throughout all the universal realms.

4. THE MICHAEL BESTOWALS

21:4.1 (239.7) There are seven groups of bestowal Creator Sons, and they are so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times they have bestowed themselves upon the creatures of their realms. They range from the initial experience up through five additional spheres of progressive bestowal until they attain the seventh and final episode of creature-Creator experience.

21:4.2 (239.8) Avonal bestowals are always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the seven bestowals of a Creator Son involve his appearing on seven creature levels of being and pertain to the revelation of the seven primary expressions of the will and nature of Deity. Without exception, all Creator Sons pass through this seven times giving of themselves to their created children before they assume settled and supreme jurisdiction over the universes of their own creation.

비록 이 일곱 번의 증여들이 다른 구역들과 우주들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필사자-증여 모험을 포용한다. 최종적 증여의 경우에 창조자 아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더 높은 필사 종족들 중 하나의 일원, 대개는 동물-기원 민족들의 물리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하여 그 전에 부여되었던 아담의-혈통을 가장 많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종족 집단의 일원으로 나타난다. 증여 아들이로서의 일곱 번의 생애들 중 오직 한번만,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너희가 베들레헴의 아기에 관한 기록을 가진 것처럼 여인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번 진화적 창조체들의 가장 낮은 계층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죽는다.

각각의 그의 증여들 이후에 창조자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며, 거기에서 증여에 대한 아버지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이고 우주 봉사의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지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일곱 번째 및 최종적 증여 이후에,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그의 우주에 대한 최종 권한과 관할권을 받아들인다.

기록에 의하면, 너희 행성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 신성한 아들은 자신의 증여 생애의 여섯 위상들을 이미 마쳤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육신화 삶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았을 때, 그는 “이제 완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였다.-그것은 말 그대로 완결되었다.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죽음은 그의 증여 생애를 완성시켰으며; 그것은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의 신성한 맹세를 완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이 체험이 획득되었을 때, 그러한 아들들은 최종 우주 주권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들의 왕이요 주님들의 주님”으로서 통치한다. 명시된 어떤 예외들을 제외하고, 이 칠중 증여 아들들은 그들이 거하는 우주들에서 분별불가하게 최극이다. 그의 지역우주에 관하여,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모든 힘”이, 승리하고 왕관을 쓴 주(主)아들에게 수여되었다.

창조자 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생애들을 완성한 후에, 별도의 계층. 칠중 주(主)아들들로서 간주된다. 개인으로서 주(主)아들들은 창조자 아들과 똑같지만, 그들은 독특한 증여 체험을 겪었음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간주된다. 창조자가 증여의 효력을 나타내려고 설계할 때, 실제적이고 영구한 변화가 운명되어진다. 정말로, 증여 아들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창조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본성에, 그를 창조자 아들의 신성한 차원에서 언제까지나 옮기어 우주를 통치하고 그것에 속한 세계들을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충만하게 획득한, 주(主)아들의 체형적 경지로 그를 올려주는, 창조체 체험을 추가하였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체현하고 완전하게 된-창조체 체험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것을 포용한다. 바로 하느님들도 그들의 우주 권역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럴만한 능

21:4.3 (239.9) Though these seven bestowals vary in the different sectors and universes, they always embrace the mortal-bestowal adventure. In the final bestowal a Creator Son appears as a member of one of the higher mortal races on some inhabited world, usually as a member of that racial group which contains the largest hereditary legacy of the Adamic stock which has previously been imported to upstep the physical status of the animal-origin peoples. Only once in his sevenfold career as a bestowal Son is a Paradise Michael born of woman as you have the record of the babe of Bethlehem. Only once does he live and die as a member of the lowest order of evolutionary will creatures.

21:4.4 (239.10) After each of his bestowals a Creator Son proceeds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there to gain the Father’s acceptance of the bestowal and to receive instruction preparatory to the next episode of universe service. Following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a Creator Son receives from the Universal Father supreme authority and jurisdiction over his universe.

21:4.5 (240.1) It is of record that the divine Son of last appearance on your planet was a Paradise Creator Son who had completed six phases of his bestowal career; consequently, when he gave up the conscious grasp of the incarnated life on Urantia, he could, and did, truly say, “It is finished” — it was literally finished. His death on Urantia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it was the last step in fulfilling the sacred oath of a Paradise Creator Son. And when this experience has been acquired, such Sons are supreme universe sovereigns; no longer do they rule as vicegerents of the Father but in their own right and name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ith certain stated exceptions these sevenfold bestowal Sons are unqualifiedly supreme in the universes of their abode. Concerning his local universe,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was relegated to this triumphant and enthroned Master Son.

21:4.6 (240.2) Creator Sons, subsequent to the completion of their bestowal careers, are reckoned as a separate order, sevenfold Master Sons. In person the Master Sons are identical with the Creator Sons, but they have undergone such a unique bestowal experience that they are commonly regarded as a different order. When a Creator deigns to effect a bestowal, a real and permanent change is destined to take place. True, the bestowal Son is still and none the less a Creator, but he has added to his nature the experience of a creature, which forever removes him from the divine level of a Creator Son and elevates him to the experiential plane of a Master Son, one who has fully earned the right to rule a universe and administer its worlds. Such beings embody all that can be secured from divine parentage and embrace everything to be derived

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합당한 체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이 왜 그의 낮은 기원과 강요된 진화적 생애를 슬퍼해야 한단 말인가!

from perfected-creature experience. Why should man bemoan his lowly origin and enforced evolutionary career when the very Gods must pass through an equivalent experience before they are accounted experientially worthy and competent finally and fully to rule over their universe domains!

제 5 장. 우주에 대한 주(主)아들들의 관계

5. RELATION OF MASTER SONS TO THE UNIVERSE

주(主)미가엘의 힘이 무제한적인 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의 체험된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이며,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권한에 복종하는 바로 그 창조체들로서의 실제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칠중 창조자 아들의 주권의 본질은 최극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1. 파라다이스 신(神)의 칠중 관점을 포용하고.
2. 시간-공간 창조체들의 칠중 태도를 구체화시키며.
3. 파라다이스 태도와 창조체 관점을 완전하게 합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체험적 주권은 최극존재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칠중 하느님의 신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칠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완성될 최극존재의 미래 주권과 비슷하며, 그것이 이루는 관련된 시간-공간 한계들 안에서 현시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의 가장 충만하게 가능한 만족을 포함한다.

지역우주 최극 주권을 성취로,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창조체 존재들의 모든 새로운 유형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미가엘 아들로부터 사라진다. 그러나 주(主)아들의 전적으로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힘의 상실이 이미 확립된 그리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생명 정밀화의 작업과 어떤 면에서도 충돌되지 않는다; 우주 진화의 이 광대한 계획은 중단 또는 축소 없이 계속된다. 주(主)아들에 의한 최극 주권의 획득은, 이미 계획되고 창조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것들에 의해 나중에 산출될 것에 대한 육성과 관리-행정에 개인적인 헌신의 책임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다양한 존재들의 거의 끝없는 진화가 발달하겠지만, 그 후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형들이나 유형의 지능 창조체는 주(主)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역우주든지 그 안에 정착된 관리-행정의 첫 발걸음, 시작이다.

칠중 증여 아들이 그의 우주에 대한 명백한 주권으로의 상승은 긴 세월의 불확실성과 상대적

21:5.1 (240.3) The power of a Master Michael is unlimited because derived from experienced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Trinity, is unquestioned because derived from actual experience as the very creatures subject to such authority. The nature of the sovereignty of a sevenfold Creator Son is supreme because it:

21:5.2 (240.4) 1. Embraces the sevenfold viewpoint of Paradise Deity.

21:5.3 (240.5) 2. Embodies a sevenfold attitude of time-space creatures.

21:5.4 (240.6) 3. Perfectly synthesizes Paradise attitude and creature viewpoint.

21:5.5 (240.7) This experiential sovereignty is thus all-inclusive of th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culminating in the Supreme Being. And the personal sovereignty of a sevenfold Son is like the future sovereignty of the sometime-to-be-completed Supreme Being, embracing as it does the fullest possible content of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Paradise Trinity manifestable within the time-space limits concerned.

21:5.6 (240.8) With the achievement of supreme local universe sovereignty, there passes from a Michael Son the power and opportunity to create entirely new types of creature beings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a Master Son's loss of power to originate entirely new orders of beings in no way interferes with the work of life elaboration already established and in process of unfoldment; this vast program of universe evolution goes on without interruption or curtailment. The acquirement of supreme sovereignty by a Master Son implies the responsibility of personal devotion to the fostering and the administering of that which has already been designed and created, and of that which will subsequently be produced by those who have been thus designed and created. In time there may develop an almost endless evolution of diverse beings, but no entirely new pattern or type of intelligent creature will henceforth take direct origin from a Master Son. This is the first step, the beginning, of a settled administration in any local universe.

21:5.7 (241.1) The elevation of a sevenfold bestowal Son to the unquestioned sovereignty of his

혼란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에, 언젠가 영성화 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분해 될 것이다; 조화우주 실체와 언젠가 조화-협동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영역들의 의지적 창조체들의 충성과 헌신을 얻고자 노력으로, 끝없는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인내의 공급들이 소진되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복구시킬 수 없는 그것을 공의(公義)가 결국에는 절멸시킬 것이다.

주 미가엘들은 그들이 일단 주권 통치자들로써 세워진 후에는 그들 자신의 지역우주들에서 최극이다. 그들의 통치에 대한 약간의 제한들은 어떤 기세들과 개인성들의 조화우주 선제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다. 그 외에 이 주(主)아들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들에서 권한과 책임과 행정-관리적 힘에 있어서 최극이다; 그들은 창조자들이며 하느님들이다. 모든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최극이다. 주어진 어떤 우주의 기능에 관한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통찰력이 있을 수 없다.

지역우주에서 정착된 주권으로 상승된 후에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그의 권역 안에서 기능하는 다른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에 대해 충만하게 통제하며, 그는 그의 영역들의 필요에 대한 그의 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통치한다. 주(主)아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의 영적 판결과 진화적 조절의 질서를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들이 창조체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하여, 그리고 더군다나 최종적 증여의 영역,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그 행성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주(主)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세계들, 그들이 직접 머물렀던 세계들뿐만 아니라 치안법관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였던 모든 세계들과도 완전한 교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접촉은 그들 자신의 영적 현존, “모든 육신에게 부여줄” 수 있는 진리의 영에 의해 유지된다. 또한 이 주(主)아들들은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영원한 어머니 아들과의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나와 시간 영역들의 행성생명의 낮은 종족들에 이르는 동정심의 범위를 갖고 있다.

제 6 장. 주(主)미가엘들의 운명

누구도 지역우주들의 칠중 주(主)주권자들의 본성과 운명 어느 것도 권한의 최종을 가지고 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문제들에 관한 많은 것들은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배웠고 믿는 것은,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universe mean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gelong uncertainty and relative confusion. Subsequent to this event, that which cannot be sometime spiritualized will eventually be disorganized; that which cannot be sometime coordinated with cosmic reality will eventually be destroyed. When the provisions of endless mercy and nameless patience have been exhausted in an effort to win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will creatures of the realms,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prevail. That which mercy cannot rehabilitate justice will eventually annihilate.

21:5.8 (241.2) The Master Michaels are supreme in their own local universes when once they have been installed as sovereign rulers. The few limitations upon their rule are those inherent in the cosmic pre-existence of certain forces and personalities. Otherwise these Master Sons are supreme in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administrative power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they are as Creators and Gods, supreme in virtually all things. There is no penetration beyond their wisdom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a given universe.

21:5.9 (241.3) After his elevation to settled sovereignty in a local universe a Paradise Michael is in full control of all other Sons of God functioning in his domain, and he may freely rule in accordance with his concept of the needs of his realms. A Master Son may at will vary the order of the spiritual adjudication and evolutionary adjustment of the inhabited planets. And such Sons do make and carry out the plans of their own choosing in all matters of special planetary need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worlds of their creature sojourn and still more concerning the realm of terminal bestowal, the planet of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21:5.10 (241.4) The Master Sons seem to be in perfect communication with their bestowal worlds, not only the worlds of their personal sojourn but all worlds whereon a Magisterial Son has bestowed himself. This contact is maintained by their own spiritual presence,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y are able to “pour out upon all flesh.” These Master Sons also maintain an unbroken connection with the Eternal Mother Son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y possess a sympathetic reach which extends from the Universal Father on high to the lowly races of planetary life in the realms of time.

6. DESTINY OF THE MASTER MICHAELS

21:6.1 (241.5) No one may with finality of authority presume to discuss either the natures or the destinies of the sevenfold Master Sovereigns of the local universes; nevertheless, we all speculate much regarding these matters. We are taught, and we believe, that each Paradise Michael is the

기원된 2원적(二元的) 신(神) 개념들의 절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실재적 위상들을 체현한다. 미가엘들은 전체 무한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무한성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 시대에서의 그들의 일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유한을 넘는 어떤 활동도 발견하지 못하며; 추측된 초(超)유한 수용력들이 자아-억제되어 있음에 틀림없고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창조체-중여 생애들의 완성과 최극 우주 주권으로의 상승은, 유한-이상(以上)의 봉사를 위한 수용력의 출현에 동반되는 미가엘의 유한-활동 수용력들의 완성된 해방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이러한 연고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주(主)아들이 그 때 창조체 존재들의 새로운 유형의 산출에 제한됨을 주목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초(超)유한 잠재성들의 해방에 의하여 필요하게 된 제약이다.

발견되지 않은 이들 창조자 힘들이 현재 우주 시대에 두루 자아-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먼 미래의 언제, 현재 동원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우주들에서, 칠중 주(主)아들과 일곱 번째-단계의 창조 영 사이의 연락이, 궁극 우주의 의(意義)의 초월적 차원들에서의 새로운 사물과 이미지와 가치들의 출현에 수반된, 봉사의 아(亞)절대적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체험적 봉사의 덕택으로 최극자의 신(神)이 실재화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바로 것처럼, 창조자 아들은 그들의 헤아려볼 수 없는 본성들 안에 묶여 있는 파라다이스-신성 잠재들의 개인적 실현을 성취하고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에서 미가엘들이 분명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최극 신성으로부터 궁극적 아(亞)절대성을 통하여 영원한 신(神) 최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우주 개인성들을 위한 빛나는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absolute of the dual deity concepts of his origin; thus he embodies actual phases of the inf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Michaels must be partial in relation to total infinity, but they are probably absolute in relation to that part of infinity concerned in their origin. But as we observe their work in the present universe age, we detect no action that is more than finite; any conjectured superfinite capacities must be self-contained and as yet unrevealed.

21:6.2 (242.1) The completion of the creature-bestowal careers and the elevation to supreme universe sovereignty must signify the completed liberation of a Michael's finite-action capacities accompanied by the appearance of capacity for more-than-finite service. For in this connection we note that such Master Sons are then restricted in the production of new types of creature beings, a restriction undoubtedly made necessary by the liberation of their superfinite potentialities.

21:6.3 (242.2)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se undisclosed creator powers will remain self-contained throughout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sometime in the far-distant future, in the now mobil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we believe that the liaison between a sevenfold Master Son and a seventh-stage Creative Spirit may attain to absonite levels of service attended by the appearance of new things, meanings, and values on transcendental levels of ultimate universe significance.

21:6.4 (242.3) Just as the Deity of the Supreme is actualizing by virtue of experiential service, so are the Creator Sons achieving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Paradise-divinity potentials bound up in their unfathomable natures. When on Urantia, Christ Michael onc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we believe that in eternity the Michaels are literally destined to b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ever blazing the path for all universe personalities as it leads from supreme divinity through ultimate absonity to eternal deity finality.

21:6.5 (242.4)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 22 편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

⇨ 021

유랜시아 책

023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2 편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

섹션

소개

- 제 1 장. 삼위일체-포용된 아들
- 제 2 장. 막강한 메신저
- 제 3 장. 높은 권한자
- 제 4 장. 이름-번호 없는 자
- 제 5 장.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 제 6 장. 삼위일체화 대사
- 제 7 장. 삼위일체화 구현의 기법
- 제 8 장.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 제 9 장. 천상의 수호자
- 제 10 장. 높은 아들 보좌관

PAPER 22

THE TRINITIZED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Trinity-Embraced Sons
- 2. The Mighty Messengers
- 3. Those High in Authority
- 4.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5. The Trinitized Custodians
- 6. The Trinitized Ambassadors
- 7. Technique of Trinitization
- 8. The Creature-Trinitized Sons
- 9. The Celestial Guardians
- 10. High Son Assistants

소개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세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하강하는 아들관계의 계층과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이외에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세 번째 집단이 있다. 아들관계의 삼위일체화 계층은 계시된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그 여러 유형의 개인성들의 기원에 따라 3가지 1차 계열로 나뉘어 있다. 이 1차 계열은 다음과 같다:

- 1. 신(神)-삼위일체화 아들.
- 2. 삼위일체-포용된 아들.
- 3.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기원에 상관없이 모든 삼위일체화 하느님의 아들은 그들 기원의 일부분으로든지, 아니면 나중에 달성되는 삼위일체 포용의 체험으로서든지 삼위일체화 구현의 체험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신(神)-삼위일체화 아들은 이 글에서 계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나머지 두 집단들, 특별히 하느님의 삼위일체-포용된 아들에게 국한되어 제시될 것이다.

INTRODUCTION

22:0.1 (243.1) THERE are three groups of beings who are called Sons of God. In addition to descending and ascending orders of sonship there is a third group known as the Trinitized Sons of God. The trinitized order of sonship is subdivided into three primary di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s of its many types of personalities, revealed and unrevealed. These primary divisions are:

- 22:0.2 (243.2) 1. Deity-trinitized Sons.
- 22:0.3 (243.3) 2. Trinity-embraced Sons.
- 22:0.4 (243.4) 3. Creature-trinitized Sons.

22:0.5 (243.5) Irrespective of origin all Trinitized Sons of God have in common the experience of trinitization, either as a part of their origin or as an experience of Trinity embrace subsequently attained. The Deity-trinitized Sons are unrevealed in these narratives; therefore will this presentation be confined to a portrayal of the remaining two groups, more particularly the Trinity-embraced

sons of God.

제 1 장. 삼위일체-포용된 아들

모든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기원적으로 2원적(二元的) 또는 단일 기원에 해당하지만, 삼위일체 포용 이후에는 그들이 삼위일체 봉사와 임무에 언제까지나 헌신된다. 이 무리단은, 계시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초우주 봉사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일곱 계층의 개인성을 포용하고 있다:

1. 막강한 메신저.
2. 높은 권한자.
3. 이름-번호 없는 자.
4.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5. 삼위일체화 대사.
6. 천상의 수호자.
7. 높은 아들 보좌관.

이들 일곱 집단의 개인성들은 기원과 본성 그리고 기능에 따라 더 세분(細分)되는데, 3개의 주요 분야;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로 나뉜다.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모두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조절자-융합 상승 필사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자가 아니다; 그들이 삼위일체 포용을 이룩한 후에는 그들의 이름들은 최종자 출석부에서 지워진다. 이 계층의 새 아들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원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순환회로 본부 행성위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그 후로 그들은 일곱 초우주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은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과 삼위일체화 대사들을 포용한다. 그들은 하보나를 통과하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진화 세라핌천사들과 전환된 중도 창조체들 중 특정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빛과 생명의 섬으로 마찬가지로 상승한 영-융합 그리고 아들-융합 필사자들 중 특정인들로부터 모집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그들이 포용된 이후에 그리고 하보나에서의 짧은 훈련 이후에,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배정된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 천상의 수호자들과 그들의 조화-협동자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두 번-삼위일체화된 개인성의 독특한 집단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또는 최종의 무리단에서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완전해

1. THE TRINITY-EMBRACED SONS

22.1.1 (243.6) All Trinity-embraced sons are originally of dual or single origin, but subsequent to the Trinity embrace they are forever devoted to Trinity service and assignment. This corps, as revealed and as organized for superuniverse service, embraces seven orders of personalities:

- 22.1.2 (243.7) 1. Mighty Messengers.
- 22.1.3 (243.8) 2. Those High in Authority.
- 22.1.4 (243.9) 3.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22.1.5 (243.10) 4. Trinitized Custodians.
- 22.1.6 (243.11) 5. Trinitized Ambassadors.
- 22.1.7 (243.12) 6. Celestial Guardians.
- 22.1.8 (243.13) 7. High Son Assistants.

22.1.9 (243.14) These seven groups of personalities are further classified, according to origin, nature, and function, into three major divisions: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nd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22.1.10 (244.1)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 the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are all Adjuster-fused ascendant mortals who have attained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But they are not finaliters; when they have been Trinity embraced, their names are removed from the finaliter roll call. The new sons of this order pass through specific courses of training, for comparatively short periods, on the circuit headquarters planets of the Havona circui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Eternals of Days. Thereafter they are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22.1.11 (244.2)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embrace the Trinitized Custodians and the Trinitized Ambassadors. They are recruited from certain of the evolutionary seraphim and translated midway creatures who have traversed Havona and have attained Paradise, as well as from certain of the Spirit-fused and the Son-fused mortals who have likewise ascended to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Subsequent to their embrace by the Paradise Trinity and after a brief training in Havona,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re assigned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22.1.12 (244.3)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ir co-ordinates, the High Son Assistants, comprise a unique group of twice-trinitized personalities. They are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f Paradise-Havona

진 상승 필사자들의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이다. 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중 일부는, 일곱 주(主) 영의 최극집행자들과의 봉사 이후에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아래에서의 봉사 이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재(再)삼위일체화(포용)되고 그 다음에는 천상의 수호자들로써 그리고 높은 아들 보좌관들로써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임명된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더 이상의 훈련 없이 초우주 봉사에 직접 배정된다.

우리의 삼위일체-기원 연관-동료들—지혜의 완전자, 신성한 조연자, 그리고 우주 검열자—은 고정된 숫자이지만,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계속 증가한다. 삼위일체-포용 아들의 일곱 계층들 전체는 일곱 초우주 정부당국의 한 일원으로 임명되며, 각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똑 같으며; 하나도 잃은 적이 없다. 삼위일체-포용 존재들은 타락에 빠진 적이 결코 없으며; 그들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초우주 정부를 경멸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달성의 아들들과 선택의 아들들은 오르본톤의 봉사에서 전혀 넘어진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때로 심판에 실수를 범하고 그로서 일시적인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 하에 일곱 계층 전체는, 거의 대부분 자아-관리 집단으로 기능한다. 그들의 봉사 범위는 멀리까지 이르며;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배정된 그 초우주를 떠나지 않지만, 그들의 삼위일체화 연관-동료들은 대우주를 그 범위로 삼아,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 이르기까지 여행한다. 그들은 어떤 초우주에서도 기능할 수 있지만, 그들은 기원적으로 임명된 초(超)정부의 일원들로서 항상 그렇게 행한다.

외견상 분명히 삼위일체-포용 아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이 배정은 현재 우주 시대의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

제 2 장. 막강한 메신저

막강한 메신저들은 삼위일체 아들의 상승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반역을 시험받았거나 아니면 동등하게 그들의 개인적 충성에 대해 증명된, 완전해진 필사자의 한 등급이다; 모두는 우주 충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시험을 이미 통과하였다. 모두가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한 때, 그들 상급자들의 불충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견고함과 충성을 지켰으며, 일부는 그러한 불충한 지휘자들을

personalities or of perfected ascendant mortals who have long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Some of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after service with the Supreme Executiv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after serving under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retrinitized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then commissioned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as Celestial Guardians and as High Son Assistants.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re assigned directly to the superuniverse service without further training.

22.1.13 (244.4) Our Trinity-origin associates —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 are of stationary numbers, but the Trinity-embraced sons are constantly increasing. All seven orders of Trinity-embraced sons are commissioned as members of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 governments, and the number in the service of each superuniverse is exactly the same; not one has ever been lost. Trinity-embraced beings have never gone astray; they may stumble temporarily, but not one has ever been adjudged in contempt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 Sons of Attainment and the Sons of Selection have never faltered in the service of Orvonton, but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have sometimes erred in judgment and thereby caused transient confusion.

22.1.14 (244.5) Under the dire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ll seven orders function very much as self-governing groups. Their scope of service is far-flung;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do not leave the superuniverse of assignment, but their trinitized associates range the grand universe, journey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o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y may function in any of the superuniverses, but they do so always as members of the supergovernment of original designation.

22.1.15 (244.6) Apparently the Trinity-embraced sons have been permanent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certainly this assignment is for the dur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we have never been informed that it is to be eternal.

2. THE MIGHTY MESSENGERS

22.2.1 (245.1) Mighty Messengers belong to the ascendant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They are a class of perfected mortals who have been rebellion tested or otherwise equally proved as to their personal loyalty; all have passed through some definite test of universe allegiance. At some time in their Paradise ascent they stood firm and loyal in the face of the disloyalty of their superiors, and some did actively and loyally function in the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기능하였다.

충실과 헌신의 그러한 개인적 기록들과 함께, 상승하는 이들 필사자는 시간세계의 순례자 유로를 따라 하보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그곳으로부터 졸업하고, 최종의 무리단으로 소집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포옹의 비밀 안에서 삼위일체화 되고 그 후에는 일곱 초우주들의 정부에 대한 관리-행정에 임명되어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연관하게 된다.

반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으로 기능하는, 굴복하지 않은 체험의 각 상승 필사자들은 결국에는 초우주 봉사의 막강한 메신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실수, 악 또는 죄의 그러한 격변을 효과적으로 막은 상승하는 창조체도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주 위기에서 반역을 방지하거나 혹은 상급 유형의 충성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행동은, 실제 반역에 아랑곳하지 않는 충성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임(先任) 막강한 메신저들은 비교적 초기에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자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그렇게 상승한 필사자로부터 선택되었는데, 대부분은 그런환다 시대에 하보나를 지나갔다. 그러나 후보자 무리단이 일곱 초우주들 각각의 대표자들을 포함할 때까지는 막강한 메신저의 최초 삼위일체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자격을 갖춘 이 계층의 최근의 집단은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올라온 상승 순례자들을 포옹하였다.

막강한 메신저들은 700,000명씩 등급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포옹되며, 100,000 명씩 각각의 초우주에 배정된다. 거의 1조(兆) 명의 막강한 메신저들이 유버사에 임명되어 있으며, 일곱 초우주들 각각에서 봉사하는 숫자가 모두 똑같다고 믿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막강한 메신저이며, 나의 필사자 체험의 동행자이자 연관-동료 역시 큰 시험에서 승리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보나를 향하여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700,000명씩 집단으로 포옹되었고, 그리고 긴밀하고도 사랑스러운 관계적-연합 속에서 대관별을 통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란시아인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오르본톤의 유버사에 임명되고 함께 배정되었으며, 우리는 두 사자들의 봉사들을 요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종종 함께 파송되고 있다.

모든 삼위일체-포옹 아들이 공통으로 그렇듯이, 막강한 메신저는 초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에 배정된다. 그들은 초우주 반영 봉사를 통하여 그

places of such unfaithful leaders.

22:2.2 (245.2) With such personal records of fidelity and devotion, these ascending mortals pass on through Havona with the stream of the pilgrims of time, attain Paradise, graduate therefrom, and a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reupon they are trinitized in the secret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subsequently are commissioned to become associated with the Ancients of Day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22:2.3 (245.3) Every ascendant mortal of insurrectionary experience who functions loyally in the face of rebellion is eventually destined to become a Mighty Messenger of the superuniverse service. Likewise is any ascendant creature who effectively prevents such upheavals of error, evil, or sin; for action designed to prevent rebellion or to effect higher types of loyalty in a universe crisis is regarded as of even greater value than loyalty in the face of actual rebellion.

22:2.4 (245.4) The senior Mighty Messengers were chosen from those ascendant mortals of time and space who were among the earlier Paradise arrivals, many having traversed Havona in the times of Grandfanda. But the first trinitizing of Mighty Messengers was not effected until the candidate corps contained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 last group of this order to qualify on Paradise embraced ascendant pilgrims from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22:2.5 (245.5) Mighty Messenger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classes of seven hundred thousand, one hundred thousand for assignment to each superuniverse. Almost one trillion Mighty Messengers are commissioned on Uversa, and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number serving in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s exactly the same.

22:2.6 (245.6) I am a Mighty Messenger, and it may interest Urantians to know that the companion and associate of my mortal experience was also triumphant in the great test, and that, though we were many times and for long periods separated in the agelong inward ascent to Havona, we were embraced in the same seven-hundred-thousand group, and that we spent our time passing through Vicegerington in close and loving association. We were finally commissioned and together assigned to Uversa of Orvonton, and we are often dispatched in company for the execution of assignments requiring the services of two Messengers.

22:2.7 (245.7) Mighty Messengers, in common with all Trinity-embraced sons, are assigned to all phases of superuniverse activities. They maintain constant

들의 본부와 계속 접촉을 유지한다. 막강한 메신저는 초우주의 모든 구역에서 봉사하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우처럼, 지역우주에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 세계에 대해 자주 임무를 수행한다.

초우주 법정에서 개별존재와 행성이 재판에 회부되면, 막강한 메신저는 그들, 둘 모두의 옹호자로 활동한다; 또한 그들은 대구역의 문제에 대한 지도에서 완전히 늘 계신이를 보조한다. 집단으로서, 그들의 주요 임무는 초우주 관찰자가 되는 일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공식 관찰자로서 다양한 본부세계와 그리고 중요한 개별 행성에 머문다. 그렇게 배정되면, 그들은 또한 그들이 머무는 구체의 관련사를 지도하는 당국자들에게 충고자로서 봉사한다. 사자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에 속한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필사자 기원을 갖는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가깝고도 개인적인 접촉으로 그리고 내려오는 하느님 아들들의 진보계획에 따라 초(超)정부를 유지한다.

막강한 메신저들은 그들의 전체 상승 생애들을 충분히 의식하며, 그것이 그 어떤 시간 창조체에 대해서든 그리고 그 어떤 공간 세계에서의 봉사든지 그들이 그렇게 유용하고 동정심 많은 사명활동자, 납득하는 메신저일 수 있는 이유이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되자마자, 너희는 우리와 자유롭게 그리고 납득하면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의 모든 진화 세계에 사는 모든 종족에서 나왔고, 생각 조절자가 내주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융합된 필사 종족 출신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높은 권한자

높은 권한자,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의 두 번째 집단은, 모두 필사자 기원을 갖는 조절자-융합 존재들이다. 이들은 우월한 행정-관리적 능력을 보여 온 그리고 그들의 상승하는 긴 생애에 두루 비범하게 경영자적인 재능을 보여 온 완전하게 된 필사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생존되는 필사자들로부터 도출된 통치능력의 진수이다.

매번의 삼위일체 연락마다 70,000명의 높은 권한자들이 삼위일체화 된다. 네바돈 지역우주가 비교적 나이 어린 창조계이기에, 이 계층의 최근 삼위일체화 등급에 있는 대표자들을 갖고 있다. 현재 100억 이상의 이 유능한 행정-관리자들이 오르본톤 안에 임명되어 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천상 존재들의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버사에 자신들의 본부를 유지하며, 다른 삼위일체-포용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예비자는 오르본톤 안에서 그들 계층의 중앙 지도기구로서 활동한다.

connection with their headquarters through the superuniverse reflectivity service. Mighty Messengers serve in all sectors of a superuniverse and frequently execute missions to the local universes and even to the individual worlds, as I do on this occasion.

22:2.8 (245.8) In the superuniverse courts, Mighty Messengers act as defenders of both individuals and planets when they come up for adjudication; they also assist the Perfections of Days in the direction of the affairs of the major sectors. As a group, their chief assignment is that of superuniverse observers. They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nd on individual planets of importance as the official observers of the Ancients of Days. When so assigned, they also serve as advisers to the authorities directing the affairs of the spheres of their sojourn. The Messengers take active part in all phases of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With their associates of mortal origin they keep the supergovernments in close and personal touch with the status and progression of the plan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22:2.9 (246.1) Mighty Messengers are fully conscious of their entire ascendant careers, and that is why they are such useful and sympathetic ministers, understanding messengers, for service on any world of space and to any creature of time. As soon as you are delivered from the flesh, you will communicate freely and understandingly with us since we spring from all the races on all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at is, from those mortal races that are indwelt by, and subsequently fused with, Thought Adjusters.

3. THOSE HIGH IN AUTHORITY

22:3.1 (246.2) Those High in Authority, the second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are all Adjuster-fused beings of mortal origin. These are the perfected mortals who have exhibited superior administrative ability and have shown extraordinary executive genius throughout their long ascending careers. They are the cream of governing ability derived from the surviving mortals of space.

22:3.2 (246.3) Seventy thousand of Those High in Authority are trinitized at each Trinity liaison. Though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s a comparatively young creation, it has representatives among a recently trinitized class of this order. There are now commissioned in Orvonton more than ten billion of these skillful administrators. Like all separate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y maintain their own headquarters on Uversa, and like the other Trinity-embraced sons, their reserves on Uversa act as the central directing body of their order in Orvonton.

높은 권한자들은 한계가 없는 행정-관리자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어디에나 제시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능률적인 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구체에서나, 거주민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나, 그리고 어떤 일곱 초우주에서의 어떤 활동의 위상에서나 봉사한다.

뛰어난 행정-관리적 지혜와 비범한 집행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총명한 존재들은 초우주 법정을 대신하여 공의(公義)의 원인을 제시하는 일을 맡는다; 그들은 공의(公義)의 실행과 진화 우주에서의 잘못된 적응들이 개정되도록 하는 일을 돌본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의 규정된 우주적 진보를 이루는 그 세계들과 구체들을 상승하는 동안 심판 받을 실수들이 언제든지 언급된다면, 너희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미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는 생애의 모든 단계들을 직접 잘 아는, 한 때 상승하던 창조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 4 장. 이름-번호 없는 자

이름-번호 없는 자들은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온 진화 종족들의 모든 아들과 딸들의 숨씨를 뛰어넘어, 경배에 대한 능력을 개발해 온 상승하는 혼들이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영적(靈的) 개념을 획득해 왔고, 그것들은 이름이나 번호에서의 진화 창조체들의 이해력을 상대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름-번호 없는 자들이라고 명명된다. 더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이름과 번호 보다 위에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 계층의 아들들은 7,000개의 집단을 이루면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포용된다. 오르본톤 안에서 임명된 이 아들들이 1억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유버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름-번호 없는 자들이 생존되는 종족들의 우월한 영적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관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때, 그리고 상승하는 생애에서의 체험이 심판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포함된 의문점들에 대하여 타당한 이해에 필수적일 때, 심판의 자리에 앉으며, 그리고 의견들을 제시하는 특별하게 분별화된다. 그들은 오르본톤의 최고 배심원들이다. 잘못 관리-운영되는 배심원 체계는 어떤 세계들에서 공의(公義)를 다소 곡해할 수도 있지만, 유버사에서 그리고 그것의 확대된 법정들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영적 정신의 최고 유형으로서 배심원-심판관을 채택한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판결은 가장 높은 기능이며, 판단을 내리도록 위임된 그들은 가장 체험이 많고 납득하는 개별존재들 중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유형들로부터 선택되어야만 할 것이다.

22.3.3 (246.4) Those High in Authority are administrators without limitation. They are the everywhere-present and always-efficient executive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serve on any sphere, on any inhabited world, and in any phase of activity in an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22.3.4 (246.5) Having superb administrative wisdom and unusual executive skill, these brilliant beings assume to present the cause of justice in behalf of the superuniverse tribunals; they foster the execution of justice and the rectification of misadaptations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refore, if you should ever be cited for errors of judgment while you are ascending the worlds and spheres of your ordained cosmic progression, it is hardly likely that you would suffer injustice since your prosecutors would be onetime ascendant creatures who are personally familiar with every step of the career you have traversed and are traversing.

4.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2.4.1 (246.6)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constitute the third and last group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they are the ascendant souls who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worship beyond the skill of all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volutionary races from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They have acquired a spiritual concept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which comparatively transcends the comprehension of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name or number; therefore are they denominate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More strictly translated, their name would be “Those above Name and Number.”

22.4.2 (247.1) This order of sons is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groups of seven thousand. There are of record on Uversa over one hundred million of these sons commissioned in Orvonton.

22.4.3 (247.2) Since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are the superior spiritual minds of the survival races, they are especially qualified to sit in judgment and to render opinions when a spiritual viewpoint is desirable, and when experience in the ascendant career is essential to an adequate comprehension of the questions involved in the problem to be adjudicated. They are the supreme jurors of Orvonton. A maladministered jury system may be more or less of a travesty of justice on some worlds, but on Uversa and its extension tribunals we employ the highest type of evolved spiritual mentality as juror-judges. Adjudication is the highest function of any government, and those who are intrusted with verdict rendering should be chosen from the highest and most noble types of

막강한 메신저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의 삼위일체화구현 등급들을 위한 후보자의 선정은 선천적이고 자동적이다. 파라다이스의 그 선택 기법은 어떤 면에서도 인위적이지 않다. 개인적 체험과 영적 가치들이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러한 존재들은 권한에 있어서 동일하고 행정-관리적 지위에 있어서 똑같지만, 그들은 모두 개별존재성과 다양한 성격들을 소유한다; 그들은 표준화된 존재들이 아니다. 모두가 특징적으로 다르며, 각자의 상승하는 생애들의 차이에 좌우된다.

이들 체험적인 분별된-자격에 추가되어,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신성한 포옹 안에서 삼위일체화 되어왔다. 따라서 그들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조화-협동 연관-동료로서 기능하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 포옹이 창조체 존재들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들의 많은 것을 미래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뿔어나오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것에 한하여 참말로 그러하다.

이 집단의 아들들은 주로,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시간-공간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생애에 대한 봉사와 관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필사 창조체의 관점이 항상 의심 속에 있다면, 그 질문은 막강한 메신저와 높은 권한자 한 분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 한 분으로 구성된 상승 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 자신이 파라다이스로 올라가, 삼위일체 포옹을 달성하고, 먼 훗날 시대에 일곱 초우주들 중 하나에서 영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속되며, 언젠가는 내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어떤 진화하는 거주 행성에 진리의 계시를 커지게 하기 위하여 배정될 수 있다.

제 5 장.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이다. 너희 종족들과 생존 가치를 지닌 또 다른 필사자들만이 하보나를 지나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언젠가 자신들이 삼위일체 고정아들과 함께 초우주 봉사를 하도록 정해졌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실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 그리고 동등하게 신실한 너희의 중도(中途) 연관-동료들 역시 똑같은 삼위일체 인정과 장엄한 개인성 운명을 향한 후보자들이 될 수 있다.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하보나를 통과하여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최후의 무리단을 달성한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전환된 중도 창

the most experienced and understanding individuals.

22:4.4 (247.3)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the trinitization classes of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is inherent and automatic. The selective techniques of Paradise are not in any sense arbitrary. Personal experience and spiritual values determine the personnel of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Such beings are equal in authority and uniform in administrative status, but they all possess individuality and diverse characters; they are not standardized beings. All are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ials of their ascendant careers.

22:4.5 (247.4) In addition to these experiential qualifications,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have been trinitized in the divine embrace of the Paradise Deities. Consequently they function as the co-ordinate associates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for the Trinity embrace does seem to precipitate out of the stream of future time many of the unrealized potentials of creature beings. But this is true concerning only that which pertains to the present universe age.

22:4.6 (247.5) This group of sons is chiefly, but not wholly, concerned with the services of the ascendant career of the time-space mortals. If the viewpoint of a mortal creature is ever in doubt, the question is settled by appeal to an ascendant commission consisting of a Mighty Messenger, One High in Authority,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22:4.7 (247.6) You mortals who read this message may yourselves ascend to Paradise, attain the Trinity embrace, and in remote future ages be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in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sometime be assigned to enlarge the revelation of truth to some evolving inhabited planet, even as I am now functioning on Urantia.

5. THE TRINITIZED CUSTODIANS

22:5.1 (247.7) The Trinitized Custodians ar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Not only do your races and other mortals of survival value traverse Havona, attain Paradise, and sometimes find themselves destined to superuniverse service with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but your faithful seraphic guardians and your equally faithful midway associates may also become candidates for the same Trinity recognition and superb personality destiny.

22:5.2 (248.1) Trinitized Custodians are ascendant seraphim and translated midway creatures who have passed through Havona and have attained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조체들이다. 그 후에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용되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되었다.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삼위일체 포용에 관한 후보자들은, 그들이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하고 그리고 뒤이어 삼위일체화를 달성한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감하게 협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 필사자 생애에서 내계 속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는 나와 함께 끝까지 견디었고, 나중에 삼위일체화 되었고, 지금은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로서 유버사 정부에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수가 전환되고 파라다이스를 성취하며, 세라핌천사들을 따라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삼위일체 포용되고 그리고 초우주 안에서 보호관리자로서 임명된다.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70,000명씩 집단을 이루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며, 각 집단의 7분의 1이 한 초우주에 배정된다. 현재 오르본톤의 봉사에 임하는 이들 신뢰받는 높은 보호관리자들의 숫자는 1억 명이 조금 넘는다. 그들은 유버사에서 그리고 대구역과 소구역 본부구체들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수고에는, 수백 만 명의 2 품천사와 다른 유능한 초우주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무리단이 그들을 보좌한다.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보호관리자로서 그들의 생애를 시작하며, 그들은 초(超)정부의 관련사에서 그런 일을 계속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초우주 정부의 관리-운영하지만, 그들은 천상의 수호자가 하는 것처럼 개별존재를 다루지는 않는다.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들은 집단적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고 집합적 구체적 투사들을 돌본다. 그들은 기록과 계획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보호관리자들이다; 그들은 부대사업, 개인성 집단, 상승자 구체적 투사, 모론시아 계획, 우주 구체적 투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업들의 신탁자로서 활동한다.

제 6 장. 삼위일체화 대사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들 중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인 보호관리자들처럼 두 가지 유형의 상승하는 창조체들로부터 모집된다.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조절자 또는 아버지 융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영 융합이고, 일부는 아들 융합이다. 이 영-융합 그리고 아들-융합 필사자들 중 특정인은 하보나에 다다르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한다. 이 파라다이스 상승자들 가운데로부터, 삼위일체 포용을 위해 후보자들이 선택되며, 때로는 그들이 7,000명 단위로 삼위일체화 된다. 그 때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삼위일체화 대사들로서 초우주들 안에 임명된다. 거의 5억 명이 유버사 안에 등록되어 있다.

Subsequently they we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and we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22.5.3 (248.2) The candidates for the Trinity embrace from among the ascendant seraphim are accorded this recognition because of their valiant co-operation with some ascendant mortal who attained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was subsequently trinitized. My own seraphic guardian of the mortal career went through with me, was later trinitized, and now is attached to the Uversa government as a Trinitized Custodian.

22.5.4 (248.3) And so with the midway creatures; many are translated and achieve Paradise and, along with the seraphim and for the same reasons, are Trinity embraced and commissioned as Custodians in the superuniverses.

22.5.5 (248.4) The Trinitized Custodian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groups of seventy thousand, and one seventh of each group is assigned to a superuniverse. There are now in the service of Orvonton slightly over ten million of these trusted and high Custodians. They serve on Uversa and on the major and minor headquarters spheres. In their labors they are assisted by a corps of several billion seconaphim and other able superuniverse personalities.

22.5.6 (248.5) The Trinitized Custodians start out their careers as custodians, and they continue as such in the affairs of the supergovernments. In a way, they are officers of their superuniverse governments, but they do not deal with individuals, as do the Celestial Guardians. The Trinitized Custodians administer group affairs and foster collective projects. They are the custodians of records, plans, and institutions; they act as the trustees of undertakings, personality groups, ascendant projects, morontia plans, universe projections, and innumerable other enterprises.

6. THE TRINITIZED AMBASSADORS

22.6.1 (248.6) Trinitized Ambassadors are the second order of th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and like their associates, the Custodians, are recruited from two types of ascendant creatures. Not all ascending mortals are Adjuster or Father fused; some are Spirit fused, some are Son fused. Certain of these Spirit- and Son-fused mortals reach Havona and attain Paradise. From among these Paradise ascenders, candidates are selected for the Trinity embrace, and from time to time they are trinitized in classes of seven thousand. They are then commissioned in the superuniverses as Trinitized Ambassadors of the Ancients of Days. Almost one-half billion are registered on Uversa.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하보나 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삼위일체 포옹을 위해 선택된다. 그들은 그들 각 집단들의 우월한 마음들을 대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융합 필사자들이 홀어져 나오는 세계에 대한 권리를 납득하고 관리-운영함에서 초우주 통치자들을 보좌하도록 최상으로 분별화되어 있다. 아들-융합 대사들은 우리가 아들-융합 개인성 계층과 관계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삼위일체화 대사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초우주 안에 있는 어느 세계나 우주에서도 그 어떤 목적에서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밀사(密使)들이다. 그들은 소구역들의 본부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봉사를 하며, 그들은 초우주의 수많은 잡다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그들은 초(超)정부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비상 또는 예비무리단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광대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일어나는 아무 일도 이들 활동과 어떤 면에서든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마음에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초우주 관련사의 수천가지 사업에 그들은 종사하고 있다.

제 7 장.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

나는 완전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영적 존재들의 최극 창조적 행위—삼위일체화구현의 행위—의 체험을 물질적 마음에게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삼위일체화구현의 기법은 대관별 그리고 단독자별의 비밀에 속하며 독특한 이 체험들을 이미 지나온 그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될 수 없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납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범한 활동행위의 본성과 의미를 인간마음에게 성공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어떤 존재에게든지 불가능하다.

신(神)들은 별도로 하고, 오직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과 각 최종자 무리단의 특정 성원들만이 삼위일체화구현에 종사한다. 파라다이스 완전에서의 특별하게 된 조건 아래에서, 이들 뛰어난 존재들은 개념-정체성의 독특한 모험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들은 어떤 새로운 존재,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산출에 여러 번 성공한다.

그러한 삼위일체화구현의 모험여행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된 창조체들은 단 한번 그러한 체험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에 반하여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경우에는 삼위일체화구현 에피소드들의 계속적인 산출에 어떤 제한도 없다. 신(神)은 오직 한 가지 면에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의 기원적이고 무한한 영, 아버지-아들의 연합된 의지의 오직 하나의 무한한 집행자가

22:6.2 (248.7) Trinitized Ambassadors are selected for the Trinity embrace upon the advices of their Havona teachers. They represent the superior minds of their respective groups and are, therefore, best qualified to assist the superuniverse rulers in understanding and in administering the interests of those worlds from which the Spirit-fused mortals hail. The Son-fused Ambassadors are of great assistance in our dealings with problems involving the Son-fused order of personality.

22:6.3 (248.8) Trinitized Ambassadors are the emissaries of the Ancients of Days for any and all purposes, to any and all worlds or universes within the superuniverse of their assignment. They render particular and important services on the headquarters of the minor sectors, and they perform the numberless miscellaneous assignments of a superuniverse. They are the emergency or reserve corps of the Trinitized Sons of the supergovernments, and they are therefore available for a great range of duties. They engage in thousands upon thousands of undertakings in superuniverse affairs which it is impossible to portray to human minds since there is nothing transpiring on Urantia that is in any way analogous to these activities.

7. TECHNIQUE OF TRINITIZATION

22:7.1 (249.1) I cannot fully unfold to the material mind the experience of the supreme creative performance of perfect and perfected spiritual beings — the act of trinitization. The techniques of trinitization are among the secrets of Vicegerington and Solitarington and are revealable to, and understandable by, none save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ese unique experiences. Therefore is it beyond the possibility of any being successfully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the nature and purport of this extraordinary transaction.

22:7.2 (249.2) Aside from the Deities, only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certain members of each of the finaliter corps engage in trinitization. Under specialized conditions of Paradise perfection, these superb beings may embark upon the unique adventure of concept-identity, and they are many times successful in the production of a new being, a creature-trinitized son.

22:7.3 (249.3) The glorified creatures who engage in such adventures of trinitization may participate in only one such experience, whereas with the Paradise Deities there seems to be no limit to the continued enactment of trinitization episodes. Deity seems to be limited in just one respect: There can be only one Original and Infinite Spirit, only one infinite executive of the united will of the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라다이스 문화와 영적 개발에서의 특정 차원들을 이미 달성한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 최종자는 하나의 창조체 존재를 삼위일체화 시키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들에 속한다. 필사자-최종자 동물들은, 파라다이스에 머물 때, 하보나 시간으로 1,000년마다 휴가를 얻는다. 그러한 최종자가 이 임무-해방 기간을 보내려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 하나는, 어떤 동료 최종자 또는 어떤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과 연관하여, 창조체 삼위일체화구현의 실현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두 필사자 최종자가, 주(主)우주 고안 건축가들 앞에 가서, 그들이 삼위일체화구현을 위한 동등한 개념을 독자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실증하면, 고안건축가들은, 그들 자신의 사려 깊은 분별위에서, 영화롭게 된 이 필사자 상승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가를 연장하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삼위일체화하는 구역으로 한동안 이동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정받은 수양 기간이 끝날 때, 만일 그들이 그 때까지 삼위일체화를 거치지 않은 선택한 기원적인 개념을 그들이 영성화 시키고 이상화 시키고 실제화시키는 파라다이스적인 노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하기를 선택하였음을 보고하면, 제 7번 주(主) 영은 그러한 비범한 시도를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다.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이 이들 모험에 소모된다; 한 때 필사자—그리고 때로는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이었던 신실하고 단호한 이 존재들이 우주적 진리 중 그들의 선택한 개념을 실제적 존재가 생겨나게 함에서 실제로 성공하게 되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헌신된 이 쌍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역할에서 실수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번 실패한다. 그렇게 실패한 삼위일체화구현을 위한 후보자들은 최극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극의 실망감을 참은 존재들이라고 명명되는 최종자의 특별 집단에 받아들여진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이 삼위일체화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 그들은 항상 성공하지만, 창조체들의 균일한 한 쌍, 같은 조직의 존재의 두 요원들의 계획된 연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새롭고도 기원적인 존재가 하느님들에 의해 삼위일체화 될 때, 신성한 그 부모들은 변하지 않는 신(神) 잠재 안에 있지만; 고양된 창조체 존재들이 그러한 창조적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에는, 동맹하고 참여하는 개별존재들 중 하나가 독특한 개인성 변형을 겪게 된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두 조상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로 된다. 최극존재가 대우주 안에서 충만한 그리고 완벽해진 개인성의 현시활동을 달성하게 되는 시기인 그때까지는 개인성의 이 일정한 영적 위상들의 이원-통일의 지위가 아마 널리 퍼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Father-Son.

22:7.4 (249.4) The ascendant Adjuster-fused mortal finaliters who have attained certain levels of Paradise culture and spiritual development are among those who can essay to trinitize a creature being. Mortal-finaliter companies, when stationed on Paradise, are granted a recess every millennium of Havona time. There are seven different ways such finaliters may elect to spend this duty-free period, and one of these is, in association with some fellow finaliter or some Paradise-Havona personality, to attempt the enactment of creature trinitization.

22:7.5 (249.5) If two mortal finaliters, on going before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emonstrate that they have independently chosen an identical concept for trinitization, the Architects are empowered, on their own discretion, to promulgate mandates permitting these glorified mortal ascenders to extend their recess and to remove themselves for a time to the trinitizing sector of the Paradise Citizens. At the end of this assigned retreat, if they report that they have singly and jointly elected to make the paradisiacal effort to spiritualize, idealize, and actualize a selected and original concept which has not theretofore been trinitized, then does Master Spirit Number Seven issue orders authorizing such an extraordinary undertaking.

22:7.6 (249.6) Unbelievably long periods of time are sometimes consumed in these adventures; an age seems to pass before these faithful and determined onetime mortals — and sometimes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 finally achieve their goal, really succeed in bringing their chosen concept of universal truth into actual being. And not always do these devoted couples meet with success; many times they fail, and that through no discoverable error on their part. Candidates for trinitization who thus fail are admitted to a special group of finaliters who are designated as beings who have made the supreme effort and sustained the supreme disappointment. When the Paradise Deities unite to trinitize, they always succeed, but not so with a homogeneous pair of creatures, the attempted union of two members of the same order of being.

22:7.7 (250.1) When a new and original being is trinitized by the Gods, the divine parents are in deity potential unchanged; but when exalted creature beings enact such a creative episode, one of the contracting and participating individuals undergoes a unique personality modification. The two ancestors of a creature-trinitized son become in a certain sense spiritually as one. We believe that this status of bi-unification of certain spiritual phases of personality will probably prevail until such time as the Supreme Being shall have attained full and completed manifestation of

새로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출현과 동시에, 두 조상들의 이 기능적 영적 연합이 발생한다; 삼위일체화 하는 두 부모들은 궁극의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피조 존재도 이 놀라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거의-신성한 체험이다. 무한한 영을 영존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였을 때, 그들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로 되었고 그 후로 항상 하나였다. 그리고 두 창조체들의 삼위일체화구현 연합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한 신(神) 연합의 무한 규모의 계층에 있을 동안에는, 창조체 삼위일체화구현의 반향들은 본성에서는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체험적 신(神)들의 완성된 사실화달성 위에서 끝날 것이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이 부모들이 그들의 우주 임무들 안에서 하나처럼 되는 동안, 그들은 최종의 무리단의 그리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에서의 구성과 호출에서는 두 개인성들로서 계속 알려질 것이다. 현 우주시대 동안, 모든 삼위일체화구현-연합 부모들은 임무에서 그리고 기능에서 분리될 수 없다; 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이가 가고, 하나가 하는 것을 다른 이가 한다. 만일 부모의 이원-통일이 필사자(또는 다른)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을 포함하게 되면, 연합된 부모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원주민들이나 하보나 원주민은 물론 최종자와도 함께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한 혼합된 연합들은 비슷한 존재들을 구성하는 특별한 무리단 안에서 모인다. 그리고 모든 삼위일체화구현 연합에서, 혼합되거나 아니면 혼합되지 않은, 부모가 되는 존재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그들은 그 전에 어느 쪽도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일곱 주(主) 영들은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 하는 연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혼합된 연합들은 항상 성공적이다. 그러한 결과적인 훌륭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창조체들 또는 공간의 시간 창조체들 중 어느 한쪽에도 이해하기가 부적당한 개념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이들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들은 걸으로 보기에 미래 우주 시대에 속하는 그리고 초우주 또는 중앙우주 관리-행정 어느 쪽에도 즉각적인 실천적 가치가 되지 않는 관념과 이상과 그리고 체험을 체현한다. 시간의 자녀들 중 이 독특한 아들과 영원의 시민은 모두 대관별에서 예비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자 아들 무리단의 비밀 대학이 점유하는 구체의 특별 구역에서 시간의 개념들과 영원의 실체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최극존재는 신(神) 실체의 세 위상에서의 통일이다: 최극자 하느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personality in the grand universe.

22.7.8 (250.2) Simultaneously with the appearance of a new creature-trinitized son, there occurs this functional spiritual union of the two ancestors; the two trinitizing parents become one on the ultimate functional level. No created being in the universe can fully explain this amazing phenomenon; it is a near-divine experience. When the Father and the Son united to eternalize the Infinite Spirit, upon the accomplishment of their purpose they immediately became as one and ever since have been one. And while the trinitization union of two creatures is on the order of the infinite scope of the perfect Deity un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 repercussions of creature trinitization are not eternal in nature; they will terminate upon the completed factualization of the experiential Deities.

22.7.9 (250.3) While these parents of creature-trinitized sons become as one in their universe assignments, they continue to be reckoned as two personalities in the make-up and roll call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uring the current universe age, all trinitization-united parents are inseparable in assignment and function; where one goes the other goes, what one does the other does. If parental bi-unification involves a mortal (or other) finaliter and a Paradise-Havona personality, the united parental beings function neither with the Paradisers, Havoners, nor finaliters. Such mixed unions forgather in a special corps made up of similar beings. And in all trinitization unions, mixed or otherwise, the parental beings are conscious of, and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y can perform duties that neither could have previously discharged.

22.7.10 (250.4)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authority to sanction the trinitizing union of finaliters and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nd such mixed liaisons are always successful. The resultant magnificent creature-trinitized sons are representative of concepts unsuited to the comprehension of either the eternal creatures of Paradise or the time creatures of space; hence they become the ward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trinitized sons of destiny embody ideas, ideals, and *experience* which apparently pertain to a future universe age and are therefore of no immediate practical value to either the super- or central universe administrations. These unique sons of the children of time and the citizens of eternity are all held in reserve on Vicegerington, where they are engaged in the study of the concepts of time and the realities of eternity in a special sector of the sphere occupied by the secret colleges of the corps of the Creator Sons.

22.7.11 (251.1) The Supreme Being is the unification of three phases of Deity reality: God the Supreme,

일정한 유한 측면의 영적 통일; 전능 최극자, 대우주 창조자들의 능력 통일; 그리고 최극 마음, 셋째 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조화-협동자들의 최극존재의 실체에 대한 개별적 기여이다.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의 훌륭한 창조체들은, 그들의 삼위일체화구현 모험여행에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계층의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의 생산이 유래된, 최극자의 신(神)의 삼중 탐험에 참여한다:

1.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 그들의 창조적 노력에 있어서 최종자는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 상승함에서 그들이 체험적으로 획득한 전능 최극자의 특정한 개념적 실체들을 삼위일체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하보나 시민들의 창조적 노력은 궁극자와 영원자에 경계를 이루는 초(超)최극 배경위에서 그들이 체험적으로 획득한 최극존재의 특정한 높은 영적 측면의 삼위일체화구현으로 귀결된다.

3.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 그러나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주민이 함께 새로운 창조체를 삼위일체화 할 때, 이 공동 노력은 최극-궁극 마음의 특정한 위상들에 반향한다. 귀결되어지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초(超)창조적이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체험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관찰구역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최극-궁극 신(神)의 실재성을 대표하며, 현 우주 시대의 창조적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보호관리자들이다.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들은 최극-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주(主)우주 기능의 어떤 측면들을 체현한다. 시간과 영원의 이 공동 자녀들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허용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제 8 장.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이 장(章)에서 고려되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 이외에도,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의 계층—일곱 최종자 무리단과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다중 연락의 다양한 자손—이 있다. 그러나 계시된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이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존재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 받는다.

새로운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들과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어리고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대개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들에서 긴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일곱 최극집행자의

the spiritual unification of certain finite aspects of the Paradise Trinity; the Almighty Supreme, the power unification of the grand universe Creators; and the Supreme Mind, the individual contribu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his coordinates to the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In their trinitization adventures the superb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Paradise are engaged in a threefold exploration of the Deity of the Supreme which results in the production of three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sons:

22:7.12 (251.2) 1. *Ascender-trinitized Sons*. In their creative efforts the finaliters are attempting to trinitize certain conceptual realities of the Almighty Supreme which they have experientially acquired in their ascension through time and space to Paradise.

22:7.13 (251.3) 2.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The creative efforts of the Paradise Citizens and the Havoners result in the trinitization of certain high spiritual aspects of the Supreme Being which they have experientially acquired on a supersupreme background bordering on the Ultimate and the Eternal.

22:7.14 (251.4) 3. *Trinitized Sons of Destiny*. But when a finaliter and a Paradise-Havoner together trinitize a new creature, this conjoint effort repercusses in certain phases of the Supreme-Ultimate Mind. The resulting creature-trinitized sons are supercreational; they represent actualities of Supreme-Ultimate Deity which have not been otherwise experientially attained, and which, therefore, automatically fall within the provin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custodians of those things which transcend the creational limit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trinitized sons of destiny embody certain aspects of the unrevealed master universe function of the Supreme-Ultimate. We do not know a great deal about these conjoint children of time and eternity, but we know much more than we are permitted to reveal.

8. THE CREATURE-TRINITIZED SONS

22:8.1 (251.5) In addition to the creature-trinitized sons considered in this narrative, there are numerous unrevealed orders of creature-trinitized beings — the diverse progeny of the multiple liaisons of seven finaliter corps and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But all these creature-trinitized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are endowed with personality by the Universal Father.

22:8.2 (251.6) When new ascender-trinitized and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are young and untrained, they are usually dispatched for long periods of service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where they serve under the

감독 아래에서 봉사한다. 그 후에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의해 지역우주에서 더 훈련을 받도록 입양되기도 한다.

높고 영화롭게 된 창조체 기원을 갖는 이 입양된 아들들은 교사 아들들의 견습생들, 학생 조력자이며, 분류상 그들은 종종 이들 아들로서 일시적으로 계수 된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봉사 영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아-부정으로 여러 고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지역우주 안에 있는 교사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한 포옹을 위하여 그들의 창조체-삼위일체화 피보호자들을 지명할 수 있다. 이 포옹으로부터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로서 떠오른 후에,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두 번-삼위일체화된 존재들의 이 독특한 집단의 운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삼위일체 포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숫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초우주들의 반영 영들의, 그리고 지역 창조계들의 어머니 영의 연관-동료들과 대사들이 된다. 어떤 존재들은 영원한 섬에서 특별한 임무에 배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존재들은 영의 파라다이스 구체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세계들에서 특별 봉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하보나의 내부 순환회로에서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공동 무리단 안으로 가는 자신들의 길을 찾는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 그리고 대관별에 모든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최종 운명은 일곱 개의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중 하나인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9 장. 천상의 수호자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7,000명 단위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포옹된다. 완전하게 된 인간들과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삼위일체화된 이들 자손은 모두 똑같이 신(神)들에 의해 포옹되지만, 그들은 그들 이전의 강사들인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조언에 따라 초우주에 배정된다. 더 훌륭한 봉사를 한 그들은 높은 아들 보좌관들로서 임명된다; 특출함이 덜한 성적을 이룬 이들은 천상의 수호자로 지명된다.

이들 독특한 존재들이 삼위일체 포옹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초우주 정부에 가치 있는 보조자들이 된다. 그들은 개인적 상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의 세계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봉사의 결과로서 상승자 생애의 관련사들을 통달한다.

tutelage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Subsequently they may be adopted for further training in the local universes by the Trinity Teacher Sons.

22:8.3 (251.7) These adopted sons of high and glorified creature origin are the apprentices, student helpers, of the Teacher Sons, and as regards classification they are often temporarily numbered with these Sons. They may and do execute many noble assignments in self-denial in behalf of their chosen realms of service.

22:8.4 (251.8) The Teache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may nominate their creature-trinitized wards for embrace by the Paradise Trinity. Emerging from this embrace as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y enter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hat being the present known destiny of this unique group of twice-trinitized beings.

22:8.5 (252.1) Not all creature-trinitized sons are Trinity embraced; many become the associates and ambassador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of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and of the Mother Spirits of the local creations. Others may accept special assignments on the eternal Isle. Still others may enter the special services on the secret worlds of the Father and on th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Eventually many find their way into the conjoint corps of the Trinitized Sons on the inner circuit of Havona.

22:8.6 (252.2) Excepting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nd those who are forgathering on Vicegerington, the supreme destiny of all creature-trinitized sons appears to be entrance into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one of the seven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9. THE CELESTIAL GUARDIANS

22:9.1 (252.3) Creature-trinitized sons are embraced by the Paradise Trinity in classes of seven thousand. These trinitized offspring of perfected humans and of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are all equally embraced by the Deities, but they are assigned to the superuniverses in accordance with the advice of their former instructors, the Trinity Teacher Sons. Those of more acceptable service are commissioned High Son Assistants; those of less distinguished performance are designated Celestial Guardians.

22:9.2 (252.4) When these unique beings have been Trinity embraced, they become valuable adjuncts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y are versed in the affairs of the ascendant career, not by personal ascension, but as a result of their service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on the

거의 10억 명에 이르는 천상의 수호자가 오르본톤에서 임명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대구역의 본부에 있는 완전히 늘 계신이의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으며 상승하는 아들-융합 필사자 무리단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천상의 수호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원의 관리들인데, 법정 메신저들로서 그리고 초우주 정부의 다양한 법정들의 소환과 결정의 전달자로서 기능한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구급대리자이다; 그들은 초우주 심판관들 앞에 현존으로 나와야 할 존재들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유버사로부터 나간다; 그들은 초우주 안에 있는 어떤 개인성이든지 구류시키라는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역우주의 영-융합 필사자들이 유버사에 그들의 출석이 요구될 때, 그들을 따라간다.

천상의 수호자와 그들의 연관-동료들인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조절자가 내주한 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과 결합하지도 않고 아들과 결합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포용은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의 비-융합 지위에 대한 보정이다. 삼위일체 포용은 다르게 변화되지 않은 포용된 아들을 제외하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안에서 개인화된 관념위에서 단독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한계는 오직 그렇게 계획되었을 때에만 발생한다.

이들 두 번-삼위일체화된 아들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다재다능한 상태도 아니고 그들의 상승자 연관-동료들처럼 믿음직스럽지도 않다; 그들은 이 집단에 속하는 아들들 중 나머지가 우주의 어두운 권역으로부터 영광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기어 올라감으로써 획득한 거대하고도 심오한 개인적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 상승자 생애를 가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힘으로 그들의 결핍을 보정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낮은 기원과 체험에 대한 우리의 수용능력에 항상 우리에게 고맙게 여긴다. 우주 상승의 체험 가능한 실체들 안에 있는 그들의 결핍을 감지하고 시인하려고 그들이 기꺼이 나서는 것은 초월적으로 아름답고, 어떤 때에는 가장 감동을 주는 애처로운 일이다.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들은 다른 삼위일체-포용 아들들에 비하여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체험 능력이 시간-공간에 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극집행자 그리고 교사 아들과 함께 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부족에 있으며, 만일 이것이 그게 아니라면, 체험적 포화는 그들 존재가 미래 우주 시대에서 체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예비로 남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실제적인 개인적 체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주적 실존 안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이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은 어떤 미래 우주신(新)시대에 체험적으로 기능하도록 예비로 남아 있다.

worlds of space.

22:9.3 (252.5) Almost one billion Celestial Guardians have been commissioned in Orvonton. They are chiefly assigned to the administrations of the Perfections of Days on the headquarters of the major sectors and are ably assisted by a corps of ascendant Son-fused mortals.

22:9.4 (252.6) The Celestial Guardians are the officers of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functioning as court messengers and as bearers of the summonses and decisions of the various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y are the apprehending agen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go forth from Uversa to bring back beings whose presence is required before the superuniverse judges; they execute the mandates for the detention of any personality in the superuniverse. They also accompany Spirit-fused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s when, for any reason, their presence is required on Uversa.

22:9.5 (252.7) The Celestial Guardians and their associates, the High Son Assistants, have never been indwelt by Adjusters. Neither are they Spirit nor Son fused. The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does, however, compensate for the nonfused status of the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The Trinity embrace may act solely upon the idea which is personified in a creature-trinitized son, leaving the embraced son otherwise unchanged, but such a limitation occurs only when so planned.

22:9.6 (252.8) These twice-trinitized sons are marvelous beings, but they are neither as versatile nor dependable as their ascendant associates; they lack that tremendous and profound personal experience which the rest of the sons belonging to this group have acquired by actually climbing up to glory from the dark domains of space. We of the ascendant career love them and do all in our power to compensate their deficiencies, but they make us ever grateful for our lowly origin and our capacity for experience. Their willingness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ir deficiencies in the experiential realities of universe ascension is transcendently beautiful and sometimes most touchingly pathetic.

22:9.7 (253.1)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are limited in contrast to other Trinity-embraced sons because their experiential capacity is time-space inhibited. They are experience-deficient, despite long training with the Supreme Executives and the Teacher Sons, and if this were not the case, experiential saturation would preclude their being left in reserve for acquiring experience in a future universe age. There is simply nothing in all universal existence which can take the place of actual personal experience, and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are held in reserve for experiential function in some future universe epoch.

맨션세계들에서 나는 종종, 초우주의 높은 법정들에 속한 이들 고귀한 관리들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로부터 막 도착한 자들조차 너무나 동경하며 그리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들 비(非)체험적 삼위일체화구현의 소유자들이, 진정한 체험과 실제적 삶의 계단에 의해 우주 경로를 상승하는, 일반적으로 보기엔 그들보다 운이 나쁜 그들의 형제들을, 실제로 부러워 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장애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우주 정부의 복잡한 행정-관리적 계획이 실행될 때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고 항상-기꺼이 일하는 자들의 무리단이다.

제 10 장. 높은 아들 보좌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연관-동료들, 파라다이스-하보나 개인성들의 영화롭게 된 상속자 존재들 중 재(再)삼위일체화 된 삼위일체화 아들의 우월한 집단이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정부의 높은 아들에 대한 개인적 도움자로서 초우주 봉사와 기능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사적(私的)인 비서로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때때로 특별위원회의 그리고 높은 아들의 다른 집단 관계적-연합의 서기로 활동한다. 그들은 지혜의 완전자, 신성한 조언자, 우주 검열자, 막강한 메신저, 높은 권한자,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을 섬긴다.

만일, 천상의 수호자를 논함에 있어서, 내가 이 두 번-삼위일체화 아들들의 한계들과 부족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면, 온통 공평하게, 나는 지금 그들의 위대한 강한 힘의 한 단면, 그들이 우리에게 거의 가치를 따질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에 관심을 기울여본다. 이들 존재는 그들이 단일의 그리고 최종 개념의 개인화구현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그들의 실존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결코 착상되거나 표현되거나 삼위일체화된 적이 없어왔던, 어떤 신성한 관념, 어떤 우주 이상들의 개인성 체현이다. 그리고 그들은 뒤이어서 삼위일체 포용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개인성 실존에서의 관념-이상에 관하여 신성한 삼위일체의 바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실제로 구현한다. 그 특정 개념이 우주에 계시할 수 있는 한, 이들 개인성은 어떤 창조체나 창조자 지능이 착상하고, 표현하고 또는 예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체현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개인화된 관념이다.

너희는 그러한 우주 실체에서의 한 가지 최종 개념의 살아있는 집중화들이 초우주 관리-행정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봉사에 쓰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22:9.8 (253.2) On the mansion worlds I have often seen these dignified officers of the high courts of the superuniverse look so longingly and appealingly at even the recent arrival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at one could not help realizing that these possessors of nonexperiential trinitization really envied their supposedly less fortunate brethren who ascend the universal path by steps of bona fide experience and actual living. Notwithstanding their handicaps and limitations they are a wonderfully useful and ever-willing corps of workers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the complex administrative plan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10. HIGH SON ASSISTANTS

22:10.1 (253.3) The High Son Assistants are the superior group of the retrinitized trinitized sons of glorified ascendant beings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of their eternal associates, the Paradise-Havona personalities. They are assigned to the superuniverse service and function as personal aids to the high s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might fittingly be denominated private secretaries. They act, from time to time, as clerks for special commissions and other group associations of the high sons. They serve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Universal Censors,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2:10.2 (253.4) If, in discussing the Celestial Guardians, I have seemed to call attention to the limitations and handicaps of these twice-trinitized sons, let me now, in all fairness, call attention to their one point of great strength, the attribute which makes them almost invaluable to us. These beings owe their very existence to the fact that they are the personification of a single and supreme concept. They are the personality embodiment of some divine idea, some universal ideal, as it has never before been conceived, expressed, or trinitized. And they have subsequently been Trinity embraced; thus they show forth and actually embody the very wisdom of the divine Trinity as concerns the idea-ideal of their personality existence. As far as that particular concept is revealable to the universes, these personalities embody all of everything that any creature or Creator intelligence could possibly conceive, express, or exemplify. *They are that idea personified.*

22:10.3 (253.5) Can you not see that such living concentrations of a single supreme concept of universe reality would be of untold service to those who are i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eruniverses?

내가 오르본톤의 남쪽 부분에 있는 새로운 우주들의 한 집단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배정된 여섯 개—높은 아들들 각각에 하나씩—의 위원회를 주관하라고 지도받은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나는 높은 아들 보좌관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때에 내 위원회에 그러한 비서를 일시적으로 배정하도록 유버사에 있는 그들 계층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였다. 우리의 관념 중 첫 번째는 우리 집단에 즉시 배속되었던 유버사에 있는 높은 아들 보좌관이 대신하였다.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3번 초우주에 배정된 높은 아들 보좌관 안에 체현되었다. 우리는 필수 지식의 조화-협동과 보급을 위하여 중앙우주 교환소를 통하여 이러한 근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확보하였고, 그 어떤 것도 최극위 안에서 창조체-삼위일체화된 그리고 최중자 안에서 신(神)-삼위일체화된 개념인 개인성의 실제 현존으로 제공되는 도움에 비교될 수 없었다. 우리의 세 번째 문제점에 관하여, 파라다이스 기록은 그러한 관념이 결코 창조체 삼위일체화된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광대한 개념들과 엄청난 이상들의 독특하고도 기원적인 개인성구현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심의에 비할 바 없는 빛을 비춰줄 수 있다. 내가 공간의 우주에서 바깥의 어떤 원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내가 운 좋게도, 내가 착수하고 해결하도록 파송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신성한 개념의 충만인 높은 아들 보좌관을 내 임무에 배속받았다면, 이것이 지원 방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러한 체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이 계획에 있는 유일한 문제는 어떤 초우주도 이런 삼위일체화 관념들의 완벽한 한 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념이 삼위일체화 되었음을 기록들이 나타내도 우리가 이들 존재의 개인적 관계적-연합을 누리는 것은 일곱 번 중 한 번뿐이다.

우리는 유버사에 있는 이들 존재 중 훨씬 많은 숫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우주 관리-행정들에 대한 그들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간의 순례자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파라다이스의 거주민들에게는 그들이, 그러한 창조적 모험여행의 실행에 필수인 그러한 체험적 실제로 서로에게 기여한 후에 삼위일체화구현을 시도하라고 용기를 준다.

현재 우리는 약 1,250,000 명의 높은 아들 보좌관들을 우리 초우주 안에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유버사에서 기능하듯이 대구역 그리고 소구역 둘 모두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먼 우주들에 우리가 배정될 때 우리와 종종 동행한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어떤 아들 또는 어떤 위원회에든지 영원토록 배정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아들이 되어온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목적들을, 가장 잘 진전시킬 수 있고, 관념 또는 이상이

22:10.4 (254.1) Not long since I was directed to head a commission of six — one of each of the high sons — assigned to the study of three problems pertaining to a group of new universes in the south parts of Orvonton. I was made acutely aware of the value of the High Son Assistants when I made requisition on the chief of their order on Uversa for temporary assignment of such secretaries to my commission. The first of our ideas was represented by a High Son Assistant on Uversa, who was forthwith attached to our group. Our second problem was embodied in a High Son Assistant assigned to superuniverse number three. We secured much help from this source through the central universe clearinghouse for the co-ordination and dissemination of essential knowledge, but nothing comparable to the assistance afforded by the actual presence of a personality who is a concept creature-trinitized in supremacy and Deity-trinitized in finality. Concerning our third problem, the records of Paradise disclosed that such an idea had never been creature trinitized.

22:10.5 (254.2) High Son Assistants are unique and original personalizations of tremendous concepts and stupendous ideals. And as such they are able to impart inexpressible illumination to our deliberations from time to time. When I am acting on some remote assignment out in the universes of space, think what it means, by way of assistance, if I am so fortunate as to have attached to my mission a High Son Assistant who is the fullness of divine concept regarding the very problem I have been sent to attack and solve; and I have repeatedly had this very experience. The only difficulty with this plan is that no superuniverse can have a complete edition of these trinitized ideas; we only get one seventh of these beings; so it is only about one time in seven that we enjoy the personal association of these beings even when the records indicate that the idea has been trinitized.

22:10.6 (254.3) We could use to great advantage much larger numbers of these beings on Uversa. Because of their value to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ions, we, in every way possible, encourage the pilgrims of space and also the residents of Paradise to attempt trinitization after they have contributed to one another those experiential realities which are essential to the enactment of such creative adventures.

22:10.7 (254.4) We now have in our superuniverse about one and a quarter million High Son Assistants, and they serve on both the major and minor sectors, even as they function on Uversa. They very often accompany us on our assignments to the remote universes. High Son Assistants are not permanently assigned to any Son or to any commission. They are in constant circulation, serving where the idea or ideal which

있는 곳에 자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감동적으로 사랑스러우며, 놀랄 만큼 충성스럽고, 지극히 지능적이며, 최극으로 현명하고—어떤 하나의 개념에 관하여—초월적으로 겸손하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의 관념 또는 이상과 관련하면서 우주의 전승지식을 너희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주체 무리,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찾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애처롭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의 삼위일체화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들, 좀 더 자세하게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포옹을 통과하여 지나온, 그리고 초우주들에 배정되어, 그곳에서 즉각적인 하보나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시간의 필사자들의 안쪽으로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자신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관리 행정자들에게 현명하고도 납득하는 협력을 주려고, 초우주 봉사에 배정된, 특정한 자의 기원과 본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오르본톤의 계시 무리단에 속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진술되었음]

they are can best further the eternal purposes of the Paradise Trinity, whose sons they have become.

22:10.8 (254.5) They are touchingly affectionate, superbly loyal, exquisitely intelligent, supremely wise — regarding a single idea — and transcendently humble. While they can impart to you the lore of the universe concerning their one idea or ideal, it is well-nigh pathetic to observe them seek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hosts of other subjects, even from the ascending mortals.

22:10.9 (254.6) And this is the narra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ing of certain of those who are called the Trinitized Sons of God, more particularly of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e divine embra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ho have then been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s, there to give wise and understanding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ors of the Ancients of Days in their untiring efforts to facilitate the inward progress of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toward their immediate Havona destination and their eventual Paradise goal.

22:10.10 (255.1) [Narrated by a Mighty Messenger of the revelatory corps of Orvonton.]

제 23 편 단독 메신저

⇨ 022

유랜시아 책

024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3 편 단독 메신저

섹션

소개

제 1 장. 단독 메신저들의 본성과 기원

제 2 장. 단독 메신저의 임무배정

제 3 장. 단독 메신저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봉사

제 4 장. 단독 메신저의 특별한 사명활동

PAPER 23

THE SOLITARY MESSENGERS

SECTIONS

Introduction

1. Nature and Origin of Solitary Messengers

2. Assignments of Solitary Messengers

3. Time and Space Services of Solitary Messengers

4. Special Ministry of Solitary Messengers

소개

단독 메신저들은 공동 창조자의 개인적이고 우주적 무리단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 중 첫 번째 그리고 선임 계층이다. 그들은 실존 단독 개인성 영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한 단독 기능에서 무한한 영의 최초 창조적 행동을 대표한다. 아버지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영 메신저는 한 번의 창조적 에피소드 속에서 개인성구현되었으며, 그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비록 내가 현재의 이 임무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 중 나와 연관된 한 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우주들의 우주 안에 그러한 개인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로지 내가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초우주의 관할권 안에서 당분간 기능하는 것으로 등록-기록된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의 유버사 보고서로부터 나는 오르본톤의 경계 내에서 그 때 활동하는 단독 메신저들이 거의 7,690조 (兆)가 있었음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전체 숫자의 7분의 1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추측한다.

INTRODUCTION

23:0.1 (256.1) SOLITARY Messengers are the personal and universal corps of the Conjoint Creator; they are the first and senior order of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represent the initial creative action of the Infinite Spirit in solitary functi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nto existence solitary personality spirits. Neither the Father nor the Son directly participated in this stupendous spiritualization.

23:0.2 (256.2) These spirit messengers were personalized in a single creative episode, and their number is stationary. Although I have one of these extraordinary beings associated with me on this present mission, I do not know how many such personalities exist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I only know, from time to time, how many are of registry-record as functioning for the time be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our superuniverse. From the last Uversa report I observe that there were almost 7,690 trillion Solitary Messengers then operating within the boundaries of Orvonton; and I conjecture that this is considerably less than one seventh of their total number.

제 1 장. 단독 메신저들의 본성과 기원

1. NATURE AND ORIGIN OF SOLITARY

MESSENGERS

하보나 일곱 순환회로 영의 창조 바로 다음에 무한한 영이 광대한 무리단의 단독 메신저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제외하고 단독 메신저들보다 선제하는 우주적 창조의 어떤 부분도 없다; 그들은 영원 가까이부터 대우주에 두루 기능해 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멀리-퍼지는 창조계에 대한 자아-계시를 위한,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위한 무한한 영의 신성한 기법에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 메신저들은 영원의 가까운 시절부터 실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자아신분의 시작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시간을 의식하며, 그러한 시간 인식을 소유하는 무한한 영의 첫 번째 창조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개인성구현되고 공간 속에서 영성화된 무한한 영의 첫-태생 창조체들이다.

이들 단독 영은 시간의 여명기에 충만한-성장 그리고 완전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영 존재로서 나아왔다. 그들은 모두 동등하고, 개인적 변동에 기초한 등급이나 부서들이 없다. 그들의 분류는 그들이 그때그때 배정되는 일의 유형에 전적으로 기초를 둔다.

필사자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거의 물질적 존재들로서 시작하고 위대한 중심들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한다; 이들 단독 영은 만물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먼 창조계에, 심지어는 가장 바깥에 있는 지역우주들에 있는 개별 세계들과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가는 임무를 몹시 원한다.

단독 메신저라고 명명되지만, 그들은 고독한 영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창조 안에서 홀로 실존함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극소수 우주 지능 계층과의 관계적-연합을 똑같이 좋아한다.

단독 메신저들은 그들의 봉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의 모든 방송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수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의 지성의 보물과 계속 접촉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존재가 같은 초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그들 자신의 직속 무리단의 일원들과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집합의 다른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곱 주(主) 영의 위원회에 의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도를 받고 있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집단이다; 그들은 불복종이나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 단독 메신저들이 언제라도 어둠 속으로 넘어갔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

단독 메신저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23:1.1 (256.3) Immediately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the Infinite Spirit brought into being the vast corps of Solitary Messengers. There is no part of the universal creation which is pre-existent to the Solitary Messengers except Paradise and the Havona circuits; they have functioned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from near eternity. They are fundamental to the divine technique of the Infinite Spirit for self-revelation to, and personal contact with, the far-flung creations of time and space.

23:1.2 (256.4) Notwithstanding that these messengers are existent from the near times of eternity, they are all aware of a beginning of selfhood. They are conscious of time, being the first of the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possess such a time consciousness. They are the first-born creatures of the Infinite Spirit to be personalized in time and spiritualized in space.

23:1.3 (256.5) These solitary spirits came forth in the dawn of time as full-fledged and perfectly endowed spirit beings. They are all equal, and there are no classes or subdivisions founded on personal variation. Their classifications are based wholly on the type of work to which they are assigned from time to time.

23:1.4 (256.6) Mortals start out as well-nigh material beings on the worlds of space and ascend inward towards the Great Centers; these solitary spirits start out at the center of all things and crave assignment to the remote creations, even to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outermost local universes and even on beyond.

23:1.5 (256.7) Though denominated Solitary Messengers, they are not lonesome spirits, for they truly like to work alone. They are the only beings in all creation who can and do enjoy a solitary existence, albeit they equally enjoy association with the very few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 with whom they can fraternize.

23:1.6 (257.1) Solitary Messengers are not isolated in their service; they are constantly in touch with the wealth of the intellect of all creation as they are capable of “listening in” on all the broadcasts of the realms of their sojourn. They can also intercommunicate with members of their own immediate corps, those beings doing the same kind of work in the same superunivers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others of their number, but they have been directed by the council of the Seven Master Spirits not to do so, and they are a loyal group; they do not disobey or default. There is no record that a Solitary Messenger ever stumbled into darkness.

23:1.7 (257.2) The Solitary Messengers, like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re among the very

지로, 시간과 공간의 법정들에 의해 판단되거나 구류되는 일로부터 제외되는, 영역들에 두루 활동하는 매우 적은 유형의 존재들에 속한다. 그들은 일곱 주(主) 영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소환될 수 없고, 한편 주(主)우주의 연대기(年代記)를 통틀어서 이 파라다이스 협의회가 단독 메신저의 사례를 판결하려고 소집된 적이 결코 없었다.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메신저는 셋째군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인된 창조된 존재들 중 믿음직스럽고 자아-의존적이며 다재다능하며 속속들이 영적이며 광범위하게 동정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중앙 섬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권한에 의해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에서 개인성구현되어 활동한다. 그들은 지역 창조계 속에서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직속 영향 아래에서 기능할 때에도, 무한한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직접 순환회로의 지속적인 동참자들이다.

이들 단독 메신저들이 왜 홀로 여행하고 일해야 하는지 기술적 이유가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들은 집단을 이루어 협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순환회로의 영양과 지도로부터 모두 함께 단절된다; 그들은 온통 고립된다. 이동 중에 있을 때, 또는 공간의 순환회로들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활동할 때, 만일 이 계층의 둘 또는 그 이상이 아주 근접하게 되면, 둘 모두 또는 전체는 더욱 높은 순환 기세와의 연락으로 내동댕이쳐진다. 너희가 예시되는 상징으로 묘사해 보자면, 그들은 “전기 합선”이다. 그러므로 충돌이 그들에게 경고되도록 정확하게 작동하고 그들의 적당한 그리고 효력적인 기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충분히 분리되도록 확실하게 유지하는 자동경보, 경계신호의 힘이 그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또한 그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과 신성한 생각 조절자 둘 모두의 근접을 감지하고 알리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

이 메신저들은 개인성 확장 또는 재생산의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우주의 일도, 그들이 종사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필수적이고 도움 되는 일을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실천적으로 없다. 특별히 그들은 우주 관련사의 관리-행정에 관련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크게 시간을 절약해 주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돕고 있다.

제 2 장. 단독 메신저의 임무배정

단독 메신저들은 천상의 개인성들의 그 어떤 개별존재나 집단에도 영구적으로 배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임무에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며,

few types of beings operating throughout the realms who are exempt from apprehension or detention by the tribunals of time and space. They could be cited to appear before no one except the Seven Master Spirits, but not in all the annals of the master universe has this Paradise council ever been called upon to adjudicate the case of a Solitary Messenger.

23:1.8 (257.3) These messengers of solitary assignment are a dependable, self-reliant, versatile, thoroughly spiritual, and broadly sympathetic group of created beings derived from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y operate by the authority of the Infinite Spirit resident on the central Isle of Paradise and as personalized on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constant partakers of the direct circuit emanating from the Infinite Spirit, even when they function in the local creations under the immediate influence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23:1.9 (257.4) There is a technical reason why these Solitary Messengers must travel and work alone. For short periods and when stationary, they can collaborate in a group, but when thus ensembled, they are altogether cut off from the sustenance and direction of their Paradise circuit; they are wholly isolated. When in transit, or when operating in the circuits of space and the currents of time, if two or more of this order are in close proximity, both or all are thrown out of liaison with the higher circulating forces. They are “short circuited” as you might describe it in illustrative symbols. Therefore they have inherent within them a power of automatic alarm, a warning signal, which unerringly operates to apprise them of approaching conflicts and unfailingly keeps them sufficiently separated as not to interfere with their proper and effective functioning. They also possess inherent and automatic powers which detect and indicate the proximity of both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nd the divine Thought Adjusters.

23:1.10 (257.5) These messengers possess no power of personality extension or reproduction, but there is practically no work of the universes in which they cannot engage, and to which they cannot contribute something essential and helpful. Especially are they the great timesavers for those who are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on of universe affairs; and they assist us all,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2. ASSIGNMENTS OF SOLITARY MESSENGERS

23:2.1 (257.6) Solitary Messengers are not permanently attached to any individual or group of celestial personalities. They are on duty, always by

그렇게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영역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직속 감독 아래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그들끼리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단독사자들이다.

단독 메신저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봉사 부서에 무한한 영에 의해 배정된다: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메신저.
2. 하보나 순환회로의 메신저.
3. 초우주의 메신저.
4. 지역우주의 메신저.
5. 지도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6. 특무 대사 그리고 밀사(密使).
7. 진리 계시자.

이들 영 메신저들은 모든 면에서 한 유형의 봉사로부터 다른 것으로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러한 전환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 메신저들의 그 어떤 따로 된 계층은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똑같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번호에 의해 지명되는 반면, 무한한 영에게는 개인적 이름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나 번호로 알려져 있다.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메신저. 나는 삼위일체에게 배정된 그 집단의 메신저들의 활동을 많이 계시하도록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神)들의 신뢰받는 비밀하인들이며, 계시되지 않은 정책들 그리고 하느님들의 미래 행위성을 포함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말했을 때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이 그들 계층에 위탁된 신용을 배반한 적이 결코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완전성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神)들이 완전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유란시아의 혼동과 혼란이,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에게 관련사들이 달라지도록 관리하는 관심이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조자들은 유란시아를 진실 그대로의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에덴은 필요성이라는 모루와 고통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하느님들이 분명하게 너희 세계에 이루려는 그 강력하고 고귀하며 체험된 성격들의 개발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욕망과 슬픔은, 너희의 시련들과 실망들은, 완전한 중앙우주의 세계들에서의 만물의 절묘한 완전성과 그들의 최극 목적에 대한 무한한 적응이 되는 것으로서 것처럼, 너희 구체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assignment, and during such service they work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ose who direct the realms of their attachment. Among themselves they have neither organization nor government of any kind; they are *Solitary Messengers*.

23:2.2 (258.1) Solitary Messengers are assigned by the Infinite Spirit to the following seven divisions of service:

23:2.3 (258.2) 1. Messengers of the Paradise Trinity.

23:2.4 (258.3) 2. Messengers of the Havona Circuits.

23:2.5 (258.4) 3. Messengers of the Superuniverses.

23:2.6 (258.5) 4.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23:2.7 (258.6) 5. 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23:2.8 (258.7) 6. Ambassadors and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23:2.9 (258.8) 7. Revelators of Truth.

23:2.10 (258.9) These spirit messengers are in every sense interchangeable from one type of service to another; such transfers are constantly taking place. There are no separate orders of Solitary Messengers; they are spiritually alike and in every sense equal. While they are generally designated by number, they are known to the Infinite Spirit by personal names. They are known to the rest of us by the name or number designative of their current assignment.

23:2.11 (258.10) 1. *Messengers of the Paradise Trinity.* I am not permitted to reveal much of the work of the group of messengers assigned to the Trinity. They are the trusted and secret servants of the Deities, and when intrusted with special messages which involve the unrevealed policies and future conduct of the Gods, they have never been known to divulge a secret or betray the confidence reposed in their order. And all this is related in this connection, not to appear boastful of their perfection, but rather to point out that the Deities can and do create *perfect beings*.

23:2.12 (258.11) The confusion and turmoil of Urantia do not signify that the Paradise Rulers lack either interest or ability to manage affairs differently. The Creators are possessed of full power to make Urantia a veritable paradise, but such an Eden woul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ose strong, noble, and experienced characters which the Gods are so surely forging out on your world between the anvils of necessity and the hammers of anguish. Your anxieties and sorrows, your trials and disappointments, are just as much a part of the divine plan on your sphere as are the exquisite perfection and infinite adaptation of all things to their supreme purpose on the worlds of the central and perfect universe.

2.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메신저. 상승하는 생애에 두루 너희는 막연하게 그러나 점점 더 단독 메신저들의 현존을 감지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면하게 될 그 메신저들 중 첫 번째는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그들이 될 것이다.

단독 메신저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원주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 서로 연관할 때 기능적으로 매우 불이익을 당하는 이 메신저들은 하보나 원주민들과 매우 가깝고도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의-초월적인 개인성들의 영들과 신성하게 완전한 이 존재들의 마음들의 접촉의 결국 생겨나는 최극의 만족감들을 인간 마음에 전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3. 초우주들의 메신저. 일곱 초우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삼위일체 기원의 저들 개인성이고, 신성한 힘과 행정-관리적 지혜의 그 삼총사들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는, 단독 메신저들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다. 하나의 초우주의 삼원적 통치자들이 다른 것의 통치자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계층의 메신저들을 통해서이다. 단독 메신저들은 한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다른 초우주의 본부로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어쩌면,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영 지능체의 유형이다. 다른 모든 개인성들은 하보나와 주(主) 영들의 집행적 세계들을 거쳐서 그러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력 메신저나 반영성 또는 방송, 그 어느 것을 이용해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의 근원에게 단독 메신저를 보내야 한다. 유란시아에 생명의 현존이 나타나기 오래 전에, 지금 나와 연관되어 있는 메신저는 유버사로부터 중앙우주로 가는 어떤 임무에 배속되었었다—거의 백만 년 동안 오르본톤의 출석 점호에서 빠졌었지만 때가 되자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초우주 안에서의 단독 메신저들의 봉사에는 한계가 없다; 그들은 높은 법정들의 집행자로서 또는 영역의 복지를 위한 정보 수집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모든 초우주들 중 오르본톤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여기에서 가장 크고 또한 융맹스러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들이 크게 배가(倍加)되기 때문이다. 더 빈곤한 영역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 충만한 기능에서의 만족감을 누린다.

4. 지역우주들의 메신저. 지역우주의 봉사에서 단독 메신저의 기능에는 제한이 없다. 비록 그

23:2.13 (258.12) 2. *Messengers of the Havona Circuits.* Throughout the ascendant career you will be vaguely, but increasingly, able to detect the presence of the Solitary Messengers, but not until you reach Havona will you recognize them unmistakably. The first of the messengers you will see face to face will be those of the Havona circuits.

23:2.14 (258.13) Solitary Messengers enjoy special relations with the natives of the Havona worlds. These messengers, who are so functionally handicapped when associating with one another, can and do have a very close and personal communion with the Havona natives. But it is quite impossible to convey to human minds the supreme satisfactions consequent upon the contact of the minds of these divinely perfect beings with the spirits of such near-transcendent personalities.

23:2.15 (259.1) 3. *Messengers of the Superuniverses.* The Ancients of Days, those personalities of Trinity origin who preside over the destini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ose trios of divine power and administrative wisdom, are bountifully supplied with Solitary Messengers. It is only through this order of messengers that the triune rulers of one superuniverse can directly and personally communicate with the rulers of another. Solitary Messengers are the only available type of spirit intelligence — aside, possibly, from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 that can be dispatched from the headquarters of one superuniverse directly to the headquarters of another. All other personalities must make such excursions by way of Havona and the executive worlds of the Master Spirits.

23:2.16 (259.2) There are some kinds of information which cannot be obtained either by Gravity Messengers, reflectivity, or broadcast. And when the Ancients of Days would certainly know these things, they must dispatch a Solitary Messenger to the source of knowledge. Long before the presence of life on Urantia the messenger now associated with me was assigned on a mission out of Uversa to the central universe — was absent from the roll calls of Orvonton for almost a million years but returned in due time with the desired information.

23:2.17 (259.3) There is no limitation upon the service of Solitary Messengers in the superuniverses; they may function as executioners of the high tribunals or as intelligence gatherers for the good of the realm. Of all the supercreations they most delight to serve in Orvonton because here the need is greatest and the opportunities for heroic effort are greatly multiplied. In the more needy realms we all enjoy the satisfaction of a more replete function.

23:2.18 (259.4) 4.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In the services of a local universe there is no limit upon the functioning of the Solitary

들이 다스리는 주(主)아들의 충만한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그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충실한 계시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 본부로부터 직접 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별자리 아버지나 체계 주권자 또는 행성영주와 연락하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든지 상관없이, 지역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메신저에게 참말이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 승격되면서 그의 손 안에 모든 힘이 집중되기 전에, 지역우주의 이들 메신저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총체적인 지도에 따라 기능하며, 그들의 거주 대표자인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게 직속으로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5. 지도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단독 메신저들의 예비부리단이 너무 많이 모집되면,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 중 하나가 탐험 자원자들을 모집한다; 한 번도 자원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세계들과 우주들의 조직화되는 핵들을 발견하는 감격을 체험하기 위하여 자유롭고도 방해받지 않는 탐험자로 보냄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역들의 공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 제공된 실마리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의심할 여지없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공간의 이들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체계들의 실존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정보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단독 메신저들이 이들 새롭게 조직되는 에너지 중심들을 탐험하고 지도에 그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들은, 심지어 인접한 영역들의 지능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래 남아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등급으로서 단독 메신저들은 중력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그들은 가끔 매우 작은 암흑 행성들, 창조체 실험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런 세계들의 현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지도되지 않은 임무를 띤 이 메신저-탐험가들은 주(主)우주를 순찰한다. 그들은 모든 외부 공간의 지도에 없는 지역으로 원정 여행을 항상 나가고 있다.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행위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단독 메신저들의 탐험에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천상의 천문학자들과 함께 종종 일하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6. 특수 대사들과 밀사. 같은 초우주 안에 위치한 지역우주들은 관례적으로 그들 본토의 아들 관계 계층에서 선택되는 대사들을 교환한다. 그러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독 메신저들은 한 영역을 다른 것에게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한 지역 창조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대사로서 가도록 종종 요청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거주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라핌천사에 싸인 대사가 멀리-떨어진 이 우주에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세라핌천사에게 싸인 존재는 너희 시간과 유란시

Messengers. They are the faithful revealers of the motives and intent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lthough they are under the full jurisdiction of the reigning Master Son. And this is true of all messengers operating in a local universe, whether they are traveling out directly from universe headquarters, or whether they are acting temporarily in liaison with Constellation Fathers, System Sovereigns, or Planetary Princes. Before the concentration of all power in the hands of a Creator Son at the time of his elevation as sovereign ruler of his universe, these messengers of the local universes function under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are immediately responsible to their resident representative, the Union of Days.

23:2.19 (259.5) 5. *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When the reserve corps of the Solitary Messengers is overrecruited, there issues from one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 call for exploration volunteers; and there is never a lack of volunteers, for they delight to be dispatched as free and untrammelled explorers, to experience the thrill of finding the organizing nucleuses of new worlds and universes.

23:2.20 (259.6) They go forth to investigate the clues furnished by the space contemplators of the realms. Undoubtedly the Paradise Deities know of the existence of these undiscovered energy systems of space, but they never divulge such information. If the Solitary Messengers did not explore and chart these newly organizing energy centers, such phenomena would long remain unnoticed even by the intelligences of adjacent realms. Solitary Messengers, as a class, are highly sensitive to gravity; accordingly they can sometimes detect the probable presence of very small dark planets, the very worlds which are best adapted to life experiments.

23:2.21 (260.1) These messenger-explorers of undirected assignment patrol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constantly out on exploring expeditions to the uncharted regions of all outer space. Very much of the information which we possess of transactions in the realms of outer space, we owe to the explorations of the Solitary Messengers as they often work and study with the celestial astronomers.

23:2.22 (260.2) 6. *Ambassadors and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Local universes situated within the same superuniverse customarily exchange ambassadors selected from their native orders of sonship. But to avoid delay, Solitary Messengers are frequently asked to go as ambassadors from one local creation to another, to represent and interpret one realm to another. For example: When a newly inhabited realm is discovered, it may prove to be so remote in space that a long time will pass before an enseraphimed

아 거리로 볼 때 초당 558,840 마일의 속도를 도저히 초과할 수 없다. 거대한 별, 역류, 그리고 우회로(迂迴路), 인력 접선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속도를 둔화시켜서 먼 여행에서 평균 속도는 초당 약 550,000마일이 될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역우주에 도착하기까지 원주민 대사에게 수백 년이 소요될 때, 단독 메신저가 그곳에서 즉시, 대사로써 당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나가달라고 종종 요청을 받는다. 단독 메신저는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중력 메신저처럼 시간과 공간에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셈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특별임무의 밀사로서 봉사한다.

7. 진리 계시자. 단독 메신저들은 진리를 계시하는 임무를 그들 계층의 가장 높은 신뢰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초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수용능력으로 언제라도 그리고 즉시 기능한다. 그들은 세계들과 체계들에게 진리 계시를 확대하도록 파송되는 위원회에 자주 배정된다.

제 3 장. 단독 메신저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봉사

단독 메신저들은, 방송 서비스 또는 반영 기능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들을 빨리 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속속들이 믿을 수 있는 개인성 중 최고의 유형이다. 그들은 특별히 시간요소가 들어있는 곳에서, 영역들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존재들에 도움을 주며 나오면서, 끝이 없는 다양한 임무 배정에서 봉사하고 있다. 초우주 권역의 봉사에 배정된 모든 계층 중에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가장 높고 가장 다재다능한 개인성구현된 존재들이다.

우주는 운송 목적을 위해 중력을 이용하는 영들로 넉넉히 공급되어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즉시—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니다. 중력 메신저 그리고 초월 기록자와 같은, 특정한 또 다른 중력 횡단자들은 개인적 존재이지만, 그들은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 관리행정자에게 활용될 수가 없다. 세계는 천사와 사람 그리고 높은 개인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세라핌천사에 싸이지 않는 존재들의 속도 한계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초당 186,280 마일이다; 중도 창조체와 특정한 다른 이들은 종종 두 배의 속도—초당 372,560마일—에 이를 수 있고, 한편 세라핌천사와 다른 이들은 세 배의 속도, 초당 약 558,840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아무튼, 단독 메신저들을 제외

ambassador can reach this far-distant universe. An enseraphimed being cannot possibly exceed the velocity of 558,840 Urantia miles in one second of your time. Massive stars, crosscurrents, and detours, as well as attraction tangents, will all tend to retard such speed so that on a long journey the velocity will average about 550,000 miles per second.

23:2.23 (260.3) When it develops that it will require hundreds of years for a native ambassador to reach a far-distant local universe, a Solitary Messenger is often asked to proceed there immediately to act as ambassador ad interim. Solitary Messengers can go in very short order, not independently of time and space as do the Gravity Messengers, but nearly so. They also serve in other circumstances as emissaries of special assignment.

23:2.24 (260.4) 7. *Revelators of Truth.* The Solitary Messengers regard the assignment to reveal truth as the highest trust of their order. And they function ever and anon in this capacity, from the superuniverses to the individual planets of space. They are frequently attached to commissions which are sent to enlarge the revelation of truth to the worlds and systems.

3. TIME AND SPACE SERVICES OF SOLITARY MESSENGERS

23:3.1 (260.5)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highest type of perfect and confidential personality available in all realms for the quick transmission of important and urgent messages when it is inexpedient to utilize either the broadcast service or the reflectivity mechanism. They serve in an endless variety of assignments, helping out the spiritual and material beings of the realms, particularly where the element of time is involved. Of all orders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domains, they are the highest and most versatile personalized beings who can come so near to defying time and space.

23:3.2 (260.6) The universe is well supplied with spirits who utilize gravity for purposes of transit; they can go anywhere any time — instanter — but they are not persons. Certain other gravity traversers are personal beings, such as Gravity Messengers and Transcendental Recorders, but they are not available to the super- and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ors. The worlds teem with angels and men and other highly personal beings, but they are handicapped by time and space: The limit of velocity for most nonenseraphimed beings is 186,280 miles of your world per second of your time; the midway creatures and certain others can, often do, attain double velocity — 372,560 miles per second — while the seraphim and

하고는, 중력 횡단자들의 순간적인 속도와 세라핌 천사들의 비교적 느린 속도 사이에서 기능하는, 운송이나 메신저 개인성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단독 메신저들은, 임무 완수에 개인성이 필수적인 곳, 그리고 다른 활용 가능한 유형의 개인성 메신저를 아무나 보내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시간 손실을 피해야 할 요구가 있는 곳의 그러한 상황에 파송되고 봉사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들은 대우주의 병합된 우주적 흐름들과 동조할 수 있는 분명하게 개인성구현된 유일한 존재들이다. 공간을 지나갈 때의 그들의 속도는 개입되는 영향에서의 커다란 다양성에 좌우되지만, 이 임무를 완수하는 여행에서 나의 연동료 메신저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초당 841,621,642,000 마일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영이 실제 개인적인 동시에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물질 유형의 마음에게 설명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전혀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들 단독 메신저들은 유란시아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불가해한 속도로 실제적으로 왕래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관리-행정의 전체 경륜은 그 개인적 요소를 대부분 잃어버렸을 것이다.

단독 메신저들은 멀리 있는 공간 지역들, 대우주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안에 포용되지 않은 영역들에 두루, 통신에서의 비상 선로로 기능할 수 있다. 한 명의 메신저가, 그렇게 기능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약 100광년(光年) 떨어진 동료 메신저에게 공간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초우주에서의 관련자들의 처리행위에서 우리와 협동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실천적 도움을 주고 시간절약을 보조해주는 데에서 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장애를 주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독 메신저들의 위대한 봉사로, 그들의 개인적 통신의 특권 때문에, 공간에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통과 속도 덕분에,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단독 메신저가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개인성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개인성과 연관될 수 있는 그 형태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 존재들의 모든 고등 유형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영 현존을 소유하고 있다. 단독 메신저들은 충만한-성장 개인성의 모든 특권들과 결합된 형태

others can traverse space at triple velocity, about 558,840 miles per second. There are, however, no transit or messenger personalities who function between the instantaneous velocities of the gravity traversers and the comparatively slow speeds of the seraphim, except the Solitary Messengers.

23:3.3 (261.1) Solitary Messengers are, therefore, generally used for dispatch and service in those situations where personality is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e assignment, and where it is desired to avoid the loss of time which would be occasioned by the sending of any other readily available type of personal messenger. They are the only definitely personalized beings who can synchronize with the combined universal currents of the grand universe. Their velocity in traversing space is variable, depending on a great variety of interfering influences, but the record shows that on the journey to fulfill this mission my associate messenger proceeded at the rate of 841,621,642,000 of your miles per second of your time.

23:3.4 (261.2) It is wholly beyond my ability to explain to the material type of mind how a spirit can be a real person and at the same time traverse space at such tremendous velocities. But these very Solitary Messengers actually come to, and go from, Urantia at these incomprehensible speeds; indeed, the whole economy of universal administration would be largely deprived of its personal element were this not a fact.

23:3.5 (261.3) The Solitary Messengers are able to function as emergency lines of communication throughout remote space regions, realms not embraced within the established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It develops that one messenger, when so functioning, can transmit a message or send an impulse through space to a fellow messenger about one hundred light-years away as Urantia astronomers estimate stellar distances.

23:3.6 (261.4) Of the myriads of beings who co-operate with us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none are more important in practical helpfulness and timesaving assistance. In the universes of space we must reckon with the handicaps of time; hence the great service of the Solitary Messengers, who, by means of their personal prerogatives of communication, are somewhat independent of space and, by virtue of their tremendous transit velocities, are so nearly independent of time.

23:3.7 (261.5) I am at a loss to explain to Urantia mortals how the Solitary Messengers can be without form and yet possess real and definite personalities. Although they are without that form which would naturally be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hey do possess a spirit presence which is discernible by all higher types of spirit beings.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only

없는 영의 거의 모든 장점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등급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참된 개인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未)개인적 영현시활동의 거의 모든 속성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대개—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시간과 공간의 장애로부터 창조체의 해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에 비례하여 개인성 특권은 적어지게 만든다. 단독 메신저들은 이 일반 법칙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영적 표현, 신성한 봉사, 개인적 사명활동, 그리고 조화우주 통신의 제한 없는 큰길의 그 어떤 그리고 그 모든 이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제약받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내가 체험한 빛 안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이 다재다능하게 협동하지 않는다면, 초우주 관련사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단독 메신저들은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성장에 따라서, 확대되는 관리-행정 업무는 반드시 증가되어지는 다른 유형의 영 사명활동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주권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창조체와 같은, 이들 새로운 창조계에서 기원되는 존재들이 맡을 것이다.

제 4 장. 단독 메신저의 특별한 사명활동

단독 메신저들은 모든 유형의 영 존재들을 위한 개인성 조화-협동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멀리-퍼지는 영적 세계의 모든 개인성들을 동족으로 만들도록 돕는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에서, 집단 정체성 의식의 발전에 많이 기여한다. 모든 유형의 영 존재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유형들 그리고 계층을 납득하고 형제우애관계를 가지도록 그러한 존재들의 능력을 육성시키는 단독 메신저의 특별한 집단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단독 메신저들은 모든 유형과 계층을 조화-협동시키는—심지어는 주(主)우주 전반적-통제자의 아(亞)절대 체제와 접촉하기까지—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 일부는 무한한 영에 의한 이들 메신저들의 창조는 어떤 면에서든 최극-궁극 마음에서의 공동 행위자의 증여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종자와 파라다이스 시민이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삼위일체화구현—최극-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마음 잠재들을 포함하는 활동행위—에 협동할 때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러한 개인성이 대관별로 파송될 때, 단독 메신저는(그러한 신(神)

class of beings who seem to be possessed of well-nigh all the advantages of a formless spirit coupled with all the prerogatives of a full-fledged personality. They are true persons, yet endowed with nearly all of the attributes of impersonal spirit manifestation.

23:3.8 (261.6) In the seven superuniverses, ordinarily — but not always — everything which tends to increase any creature's liberation from the handicaps of time and space proportionately diminishes personality prerogatives. Solitary Messengers are an exception to this general law. They are in their activities all but unrestricted in the utilization of any and all of the limitless avenues of spiritual expression, divine service, personal ministry, and cosmic communication. If you could view these extraordinary beings in the light of my experience in universe administration, you would comprehend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ordinate superuniverse affairs were it not for their versatile co-operation.

23:3.9 (262.1) No matter how much the universe may enlarge, no more Solitary Messengers will probably ever be created. As the universes grow, the expanded work of administration must be increasingly borne by other types of spirit ministers and by those beings who take origin in these new creations, such as the creatures of the Sovereign Sons and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4. SPECIAL MINISTRY OF SOLITARY MESSENGERS

23:4.1 (262.2) The Solitary Messengers seem to be personality co-ordinators for all types of spirit beings. Their ministry helps to make all the personalities of the far-flung spiritual world akin. They contribute much to the development, in all spirit beings, of a consciousness of group identity. Every type of spirit being is served by special groups of Solitary Messengers who foster the ability of such beings to understand and fraternize with all other types and orders, however dissimilar.

23:4.2 (262.3) The Solitary Messengers demonstrate such an amazing ability to co-ordinate all types and orders of finite personality — even to make contact with the absonite regime of the master universe overcontrollers — that some of us postulate that the creation of these messengers by the Infinite Spirit is in some manner related to the Conjoint Actor's bestowal of Supreme-Ultimate Mind.

23:4.3 (262.4) When a finaliter and a Paradise Citizen co-operate in the trinitization of a “child of time and eternity” — a transaction involving the unrevealed mind potentials of the Supreme-Ultimate — and when such an unclassified personality is

마음의 증여에 대한 추측된 개인성 반향) 항상 그러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에게 수호-동행자로 배정된다. 이 메신저는 자신이 배정받은 세계로 새로운 운명의 아들을 따라가며 더 이상 대관별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운명에 그렇게 배속되면, 단독 메신저는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독자적인 감독에 언제까지나 전환된다. 그러한 색다른 관계적-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특한 개인성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들 동반자관계들이 대관별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쌍도 거기를 떠난 적이 없다.

단독 메신저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운명의 아들들의 삼위일체화구현은 무제한 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화된 각각의 운명의 아들이 그에게 배정된 단독 메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메신저들의 공급이 중단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대우주에서 누가 그들의 일을 맡을 것인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가운데에서 새로운 개발되는 어떤 것이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먼 미래에는 대우주가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에 의해 대부분 관리-운영되고, 한편으로는 단일-기원 그리고 2원(二元)-기원 창조체들은 외부 공간 영역 속으로 전환될 것인가? 만일 메신저들이 그들의 예전의 봉사에 돌아온다면, 이들 운명의 아들은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단독 메신저들의 공급이 이들 운명의 아들의 수호-동행자들로서 다 흡수되어버리면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인 사이의 삼위일체화구현은 중단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단독 메신저들 모두가 대관별에 집중되는 것일까? 이들 비범한 영 개인성들이 삼위일체화된 이들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과 영원히 연관하게 될 것인가? 대관별에 모이고 있는 이들 쌍들이 막강한 신비 존재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단독 지도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에 어떤 의의(意義)를 우리가 덧붙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그리고 유사한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어 놓고, 수많은 다른 조직의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묻고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한다.

이 활동행위는,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많은 유사 사건들과 함께, 대우주의 성원들이 심지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성원들까지도, 지금 외계 공간 영역에서 두루 벌어지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 진화에 조화-협동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참조하면서, 어떤 분명하고도 특별한 재조직을 진행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영원한 과거가 체험해 온 모든 것을 멀리 초월할 우주 진화의 현상들을, 영원한 미래가 목격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듯이, 계속-높아가는 기대감과 예리한 흥미를 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모험여행

dispatched to Vicegerington, a Solitary Messenger (a conjectured personality repercussion of the bestowal of such deity mind) is always assigned as guardian-companion to such a creature-trinitized son. This messenger accompanies the new son of destiny to the world of his assignment and nevermore leaves Vicegerington. When thus attached to the destinies of a child of time and eternity, a Solitary Messenger is forever transferred to the sole supervis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What the future of such an extraordinary association may be, we do not know. For ages these partnerships of unique personalities have continued to forgather on Vicegerington, but not even a single pair has ever gone forth therefrom.

23:4.4 (262.5) Solitary Messengers are of stationary numbers, but the trinitization of the sons of destiny is apparently an unlimited technique. Since each trinitized son of destiny has assigned to him a Solitary Messenger, it appears to us that at some time in the remote future the supply of messengers will become exhausted. Who will take up their work in the grand universe? Will their service be assumed by some new development among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Is the grand universe at some remote period going to be more nearly administered by Trinity-origin beings while the single- and dual-origin creatures move on into the realms of outer space? If the messengers return to their former service, will these sons of destiny accompany them? Will the trinitizations between finaliters and Paradise-Havoners cease when the supply of Solitary Messengers has been absorbed as guardian-companions of these sons of destiny? Are all our efficient Solitary Messengers going to be concentrated on Vicegerington? Are these extraordinary spirit personalities going to be eternally associated with these trinitized sons of unrevealed destiny? What significance should we attach to the fact that these couples forgathering on Vicegerington are under the exclusive direction of those mighty mystery beings,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se and many similar questions we ask ourselves, and ask numerous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but we do not know the answers.

23:4.5 (263.1) This transaction, together with many similar occurrences in universe administration, unmistakably indicates that the personnel of the grand universe, even that of Havona and Paradise, is undergoing a definite and certain reorganization in co-ordination with, and with reference to, the vast energy evolutions now taking place throughout the realms of outer space.

23:4.6 (263.2)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 eternal future will witness phenomena of universe evolution which will far transcend all that the eternal past has experienced. And we anticipate such tremendous adventures, even as you should,

을 기다리고 있다.

[유버사로부터 온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
되었음]

with keen relish and ever-heightening expectation.

^{23:4.7 (263.3)}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from
Uversa.]

제 24 편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 023

유랜시아 책

025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4 편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섹션

소개

- 제 1 장.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 제 2 장. 인구조사 지도자
- 제 3 장.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 제 4 장. 연관-동료 검열자
- 제 5 장. 배정된 파수자
- 제 6 장. 졸업생 안내자
- 제 7 장.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소개

유버사에서 우리는 공동 창조자의 모든 개인성들 그리고 실존개체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공간의 메신저 무리, 그리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인데, 그들은 필사자 진보라는 상승 기획에 해당하는 의지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사명활동 일에 관여하는 영 존재들이다.

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는 저들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은 일곱 부문에서 대우주에 두루 기능한다:

1. 단독 메신저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3. 인구조사 지도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5. 연관-동료 검열자
6. 배정된 파수자
7. 졸업생 안내자

PAPER 24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 The Census Directors
3.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4. The Associate Inspectors
5. The Assigned Sentinels
6. The Graduate Guides
7. Origin of the Graduate Guides

INTRODUCTION

24:0.1 (264.1) ON UVERSA we divide all personalities and entities of the Conjoint Creator into three grand divisions: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hose spirit beings who are concerned with teaching and ministering to the will creatures of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24:0.2 (264.2) Thos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at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function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 seven divisions:

24:0.3 (264.3) 1. Solitary Messengers.

24:0.4 (264.4)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4:0.5 (264.5) 3. Census Directors.

24:0.6 (264.6)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24:0.7 (264.7) 5. Associate Inspectors.

24:0.8 (264.8) 6. Assigned Sentinels.

24:0.9 (264.9) 7. Graduate Guides.

단독 메신저와 순환회로 감독자와 인구조사 지도자 그리고 개인 도움자는 반(反)중력의 엄청난 자질의 소유가 그 특징이다. 단독 메신저에게는 알려진 일반적 본부가 없으며;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와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초우주의 수도에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들은 중앙에 있는 빛의 섬에 주둔한다. 연관-동료 검열자 그리고 배정된 파수자들은 지역우주들의 수도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우주 안에 거주하고 있고 그것의 십 억 세계에서 기능한다. 이들 높은 개인성 대부분이 지역우주 안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화 영역 관리-행정에 유기적으로 배속되어 있지는 않다.

이 집단을 구성하는 일곱 등급들 중에서, 오직 단독 메신저만이 그리고 아마 개인 도움자도 우주들의 우주를 범위로 삼는다. 단독 메신저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면서 마주치게 된다: 하보나 순환회로들에 두루, 초우주 수도로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구역들에 두루, 그리고 지역우주를 거치고 심지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도 마주치게 된다. 단독 메신저들이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봉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에서 이미 다루었다.

제 1 장.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공간의 광대한 힘 흐름들과 영 에너지의 순환 회로들은 자동으로 작용하는 듯 보일지 모르고; 그것들이 방해나 장애 없이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들 모든 거대한 에너지 체계는 통제되고 있다; 그것들은 지능적 감독에 종속되어 있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순전히 물리적 또는 물질적 에너지 영역—우주 힘 지도자들의 권역—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순환회로들과, 그리고 지능 창조체 중 모론시아 또는 과도기 유형과 고도로 발달된 영적 존재, 둘 모두의 유지에 필수적 요소인, 그런 변형된 순환회로들과도 관련된다. 감독자들이 에너지 순환회로와 신성의 초(超)본질에 기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시간과 영원의 비교적 높은, 모든 순환회로들, 그리고 대우주 구성 부분들의 관리-행정에 관련되는, 모든 상대적 영 순환회로에 상관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섬 밖에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에너지 순환회로에 지도를 내리고 조종한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무한한 영의 독점적 창조체이며, 그들은 공동 행위자의 대리자로서 단독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 다음과

24:0.10 (264.10) Solitary Messengers, Circuit Supervisors, Census Directors, and the Personal Aids are characterized by the possession of tremendous endowments of antigravity. The Solitary Messengers are without known general headquarters; they roam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nd the Census Directors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The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are stationed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The Associate Inspectors and the Assigned Sentinels are respectively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and on the capitals of their component systems. The Graduate Guides are resident in the Havona universe and function on all its billion worlds. Most of these higher personalities have stations in the local universes, but they are not organically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s of the evolutionary realms.

24:0.11 (264.11) Of the seven classes composing this group, only the Solitary Messengers and perhaps the Personal Aids range the universe of universes. Solitary Messengers are encountered from Paradise outward: through the Havona circuits to the superuniverse capitals and thence out through the sectors and local universes, with their subdivisions, and even to the inhabited worlds. Although Solitary Messengers belong to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ir origin, nature, and service have been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per.

1.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24:1.1 (265.1) The vast power currents of space and the circuits of spirit energy may seem to operate automatically; they may appear to function without let or hindrance, but such is not the case. All these stupendous systems of energy are under control; they are subject to intelligent supervision.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concerned, not with the realms of purely physical or material energy — the domain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 but with the circuits of relative spiritual energy and with those modified circuits which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both the highly developed spiritual beings and the morontia or transition type of intelligent creatures. The supervisors do not give origin to circuits of energy and superessence of divinity, but in general they have to do with all higher spirit circuits of time and eternity and with all relative spirit circuits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ponent parts of the grand universe. They direct and manipulate all such spirit-energy circuits outside the Isle of Paradise.

24:1.2 (265.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the exclusive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y function solely as the agents of the Conjoint Actor.

같은 네 계층으로 개인성구현 된다:

1. 최극 순환회로 감독자.
2. 연관-동료 순환회로 감독자.
3. 2차 순환회로 감독자.
4. 3차 순환회로 감독자.

하보나의 최극 감독자들과 일곱 초우주의 연관 감독자들은 완벽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층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는다. 최극 감독자들은 숫자가 일곱이며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선도(先導)하는 세계에 주둔하고 있다. 일곱 초우주의 순환회로들은 일곱 연관 감독자로 구성된 훌륭한 집단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들은 일곱 최극 집행자들의 세계인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 위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공간의 초우주들의 순환회로들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영의 이들 파라다이스 구체 위에서 일곱 연관-동료 순환회로 감독자 그리고 최극 힘 중심 중 첫 번째 계층이, 최극집행자의 지도 아래에서 연락을 일으키어, 결국 일곱 초우주를 향해 통과해 나아가는 모든 물질적 그리고 영적(靈的) 순환회로들이 하위(下位)-파라다이스 조화-협동으로 귀결되도록 한다.

각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를 위한 2차 감독자들이 주둔하고 있다. 대구역과 소구역은 초(超)정부의 행정-관리적 부서들이지만, 이들 영-에너지 감독의 문제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나는 대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2차 순환회로 감독자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버사에는 이들 존재가 84,691명 있다. 2차 감독자들은 계속 창조되고 있다; 때때로 그들이 최극집행자들의 여러 세계에 70명의 집단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관할권에 속한 새롭게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해, 우리가 영 에너지와 연락 힘의 분리된 순환회로들의 설치를 주선해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들을 확보한다.

3차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모든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기능한다. 이 계층은, 2차 감독자들처럼, 계속되는 창조체에 속하는데, 700명의 집단으로 창조된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지역우주에 배정된다.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그들의 특정임무를 위해 창조되며, 그들은 그들이 기원적으로 임명된 집단 속에서 영원토록 봉사한다. 그들은 봉사에서 교대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기원적으로 배정된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다. 예를 들면: 3차 순환회로 감독자 572,842번은 너희 지역우주가 구상된 초기 이래로 구원자별에서 계속 기능해 왔고, 그는 네바돈

They are personalized for service in the following four orders:

- 24:1.3 (265.3) 1. Supreme Circuit Supervisors.
- 24:1.4 (265.4) 2. Associate Circuit Supervisors.
- 24:1.5 (265.5) 3. Secondary Circuit Supervisors.
- 24:1.6 (265.6) 4. Tertiary Circuit Supervisors.

24:1.7 (265.7) The supreme supervisors of Havona and the associate superviso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of completed numbers; no more of these orders are being created. The supreme supervisors are seven in number and are stationed on the pilot worlds of the seven Havona circuits. The circui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in the charge of a marvelous group of seven associate supervisors, who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world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From here they supervise and direct the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of space.

24:1.8 (265.8) On thes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the seven associate circuit supervisors and the first order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effect a liaison which,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Executives, results in the sub-Paradise co-ordination of all material and spiritual circuits passing out to the seven superuniverses.

24:1.9 (265.9)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each superuniverse are stationed the secondary supervisors for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major and minor sectors ar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supergovernments but are not concerned in these matters of spirit-energy supervision. I do not know how many secondary circuit supervisors there are in the grand universe, but on Uversa there are 84,691 of these beings. Secondary supervisors are being created right along; from time to time they appear in groups of seventy on the worlds of the Supreme Executives. We obtain them on requisition as we arr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circuits of spirit energy and liaison power to the newly evolving universes of our jurisdiction.

24:1.10 (265.10) A tertiary circuit supervisor functions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very local universe. This order, like the secondary supervisors, is of continuous creation, being created in groups of seven hundred. They are assigned to the local universes by the Ancients of Days.

24:1.11 (266.1) Circuit supervisors are created for their specific tasks, and they eternally serve in the group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They are not rotated in service and hence make an agelong study of the problems found in the realm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For example: Tertiary circuit supervisor number 572,842 has functioned on Salvington since the early concept of your local

의 미가엘의 개인적 참모진의 일원이다.

지역우주 또는 그보다 높은 우주들에서 활동 하든지 안하든지,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모든 영 메시지들의 전달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개인성들의 통행을 위하여 적당한 순환회로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지도한다. 순환회로를 감독하는 그들의 활동에서 이들 유능한 존재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대리자, 기세, 그리고 개인성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계시되지 않은 “회로 통제”의 높은 영 개인성들을 사용하며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로 구성된 수많은 참모진들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만약에 행성영주가 우주 아버지 그리고 그의 대리자 아들에 대항하여 반역하게 되면, 진화 세계를 고립시키는 일을 그들이 한다. 그들은 보다 높은 영 계층의 특정 우주 순환회로로부터, 어떤 세계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힘 지도자들의 물질적 흐름들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우주 힘 지도자들이 물질적 순환회로에 대해 갖는 것과 똑같이, 영 순환회로들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갖는다. 두 계층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창조체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조종될 수 있는 모든 영 그리고 모든 물질 순환회로를, 함께 감독한다.

힘 지도자들이 물리적-에너지와 연관하는 그러한 마음-기계적 마음-위상에 대하여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영과 연관하는 그러한 여러 마음 순환회로에 대한 일정한 감시를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층의 기능들은 다른 계층과의 연락에 의하여 확대되지만, 순수 마음의 순환회로들은 그 둘 중 어느 편에의 감독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들 두 계층은 조화-협동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모든 다양한 수고에 있어서 우주순환회로 감독자들은 일곱 최극 힘 지도자와 그들의 하급자들에게 종속된다.

순환회로 감독자들이 그들 각각의 계층들 안에서 전반적으로 똑같은 반면, 그들은 모두 뚜렷한 개별존재들이다. 그들은 참된 개인적 존재들이지만, 전체 우주 실존에서 어떤 다른 유형의 창조체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자질로서 부여하지-않은-부류의 개인성 유형을 갖고 있다.

비록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알아보고 또 알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과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순환회로 감독자들이며, 그들은 엄격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들은 그들의 감독에 종속된 순환회로들과 관련되는 그러한 활동들의 감시를 맡고있는 개인성들과 실존개체들과만 상대한다.

universe, and he is a member of the personal staff of Michael of Nebadon.

24:1.12 (266.2) Whether acting in the local or higher universes, circuit supervisors direct all concerned as to the proper circuits to employ for the transmission of all spirit messages and for the transit of all personalities. In their work of circuit supervision these efficient beings utilize all agencies, forces, and personalitie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y employ the unrevealed “high spirit personalities of circuit control” and are ably assisted by numerous staffs composed of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t is they who would isolate an evolutionary world if its Planetary Prince should rebel agains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vicegerent Son. They are able to throw any world out of certain universe circuits of the higher spiritual order, but they cannot annul the material currents of the power directors.

24:1.13 (266.3)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have something of the same relationship to spirit circuits that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to material circuits. The two orders are complementary, together having the oversight of all spirit and all material circuits that are controllable and manipulatable by creatures.

24:1.14 (266.4) The circuit supervisors exercise certain oversight of those mind circuits which are spirit associated much as the power directors have certain jurisdiction over those phases of mind which are physical-energy associated — mechanical mind. In general the functions of each order are expanded by liaison with the other, but the circuits of pure mind are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neither. Neither are the two orders co-ordinate; in all their manifold labors the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are subject to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ir subordinates.

24:1.15 (266.5) While the circuit supervisors are entirely alike within their respective orders, they are all distinct individuals. They are truly personal beings, but they possess a type of other-than-Father-endowed personality not encountered in any other type of creature in all universal existence.

24:1.16 (266.6) Although you will recognize and know them as you journey inward towards Paradise, you will have no personal relations with them. They are circuit supervisors, and they attend strictly and efficiently to their business. They deal solely with those personalities and entities having the oversight of those activitie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circuits subject to their supervision.

제 2 장. 인구조사 지도자

2. THE CENSUS DIRECTORS

우주 지능의 조화우주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창조체들의 현존과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들의 우주 안에는 모든 의지 창조체들을 계속 계수(計數) 하는 독립된 방법이 작용하고 있다.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무한한 영의 특별하고도 완성된 창조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숫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반영성 기법과 완전한 동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그들은 지능적 의지에 개인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 지도자들은, 충분하게-남득되지 않는 기법에 의해, 대우주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의지의 탄생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앙 창조와 일곱 초우주들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의 숫자, 본성 그리고 행방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지식이 선천적이다; 신(神)들은 모든 것을 안다.

일곱 인구조사 지도자들이 하보나에서 활동하는데, 한 명의 존재가 각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주둔한다. 영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에 있는 이 일곱 계층들과 예비자들 계층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관할권 아래에서 기능한다.

한 명의 인구조사 지도자가 각 초우주의 본부의 의장이 되는 반면, 그러한 우두머리 지도자 밑에, 각 지역우주마다 한 명씩, 수많은 숫자가 있다. 이 계층에 속한 모든 개인성들은 하보나 선도(先導) 세계들과 일곱 초우주 우두머리들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일곱 번째 초우주에는 100,000명의 인구조사 지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역우주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그들 전체로 구성된다; 그것은 전체 오르본톤 지도자들의 초우주 우두머리인 유사시아 개인적 참모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시아는, 다른 초우주 우두머리들처럼, 지능 의지의 등록에 직접적으로 조율되지 않는다. 그는 오르본톤 우주들 안에 주둔하는 자신의 종속들에게 독자적으로 조율된다; 그래서 그는 지역 창조계들의 본부들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들을 합계하는 놀라운 개인성으로서 행동한다.

때때로 유버사의 공식 기록자들은, 유사시아의 개인성 위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초우주의 지위를 그들의 기록에 남긴다. 그러한 인구조사 자료는 초우주에 도착적인 것이다; 이 보고들은 하보나에도 전달되지 않고 파라다이스에도 보내지지 않는다.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의지 기능의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에서만 인간 존재들—다른 의지 창조체들과의 경우처럼—에게 관여한다. 그들은 너희

24:2.1 (266.7) Notwithstanding that the cosmic mind of the Universal Intelligence is cognizant of the presence and whereabouts of all *thinking* creatures, there is operativ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an independent method of keeping count of all *will* creatures.

24:2.2 (266.8) The Census Directors are a special and completed crea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y exist in numbers unknown to us. They are so created as to be able to maintain perfect synchrony with the reflectivity technique of the superuniverses, while at the same time they are personally sensitive and responsive to intelligent *will*. These directors, by a not-fully-understood technique, are made immediately aware of the birth of will in any part of the grand universe. They are, therefore, always competent to give us the number, nature, and whereabouts of all will creatures in any part of the central creation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they do not function on Paradise; there is no need for them there. On Paradise knowledge is inherent; the Deities know all things.

24:2.3 (267.1) Seven Census Directors operate in Havona, one being stationed on the pilot world of each Havona circuit. Excepting these seven and the reserves of the order on the Paradise worlds of the Spirit, all Census Directors func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24:2.4 (267.2) One Census Director presides at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while subject to such a chief director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ne on the capital of every local universe. All personalities of this order are equal excepting those on the Havona pilot worlds and the seven superuniverse chiefs.

24:2.5 (267.3) In the seventh superuniverse there are one hundred thousand Census Directors. And this number consists entirely of those assignable to local universes; it does not include the personal staff of Usatia, the superuniverse chief of all Orvonton directors. Usatia, like the other superuniverse chiefs, is not directly attuned to the registration of intelligent will. He is solely attuned to his subordinates stationed in the Orvonton universes; thus he acts as a magnificent totaling personality for their reports coming in from the capitals of the local creations.

24:2.6 (267.4) From time to time the official recorders of Uversa place on their records the status of the superuniverse as it is indicated by the registrations in and upon the personality of Usatia. Such census data is indigenous to the superuniverses; these reports are transmitted neither to Havona nor to Paradise.

24:2.7 (267.5) The Census Directors are concerned with human beings — as with other will creatures — only to the extent of recording the fact of will

의 삶과 그 행위들에 대한 기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록하는 개인성들이 아니다. 오르본톤의 81,412번인, 현재 구원자별에 주둔하고 있는 네바돈의 인구조사 지도자는 바로 이 순간에 이곳 유란시아에서의 너희 삶 현존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알고 있다; 그는 너희가 의지적 창조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너희 죽음을 확인하는 기록을 잘 제공할 것이다.

인구조사 지도자들은 의지의 첫 번째 행동이 수행될 때 새로운 의지적 창조체의 실존을 등록한다; 그들은 의지의 마지막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 의지적 창조체의 죽음을 표시한다. 비교적 높은 일정한 동물들의 반응 속에서 관찰되는, 의지의 부분적 창발은 인구조사 지도자들의 권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한 의지적 창조체들이 외에는 계수하지 않으며, 의지 기능에만 응답한다. 그들이 의지 기능을 정확히 어떻게 등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존재들은 항상 인구조사 지도자로 존재해 왔으며, 또 항상 그럴 것이다. 그들은 우주 활동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든지 비교적 쓸모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능함에 있어 실패가 없으며; 불이행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힘과 불가해한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 존재이다; 그들은 인식 가능한 영 현존 그리고 형태를 갖고 있다.

제 3 장.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우리는 개인 도움자들의 창조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숫자는 대운을 이루겠지만, 그것은 유버사에 있는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한 전통적 추론에 의거하여, 나는 그들의 숫자가 1조(兆)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한한 영이 이 개인 도움자들의 창조에 있어서 숫자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들은 신(神)의 셋째 개인의 파라다이스 현존에 대한 독점적 보조를 위하여 존재한다. 비록 무한한 영에게 직접적으로 배정되고 파라다이스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창조의 끝부분까지 변칙이며 이리저리 움직인다. 공동 창조자가 확장하는 순환회로들 중 어디든지, 이 개인 도움자들이 무한한 영의 명령을 시행할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우주를 지나가지만 메신저들과 같은 그러한 감각에서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 도움자들은 모두 동등하고 똑같으며; 그들은 어떤 개별존재성의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 공동 행위자가 그들을 참된 개인성들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실제 개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다른 영(靈) 존재들에게 어떤 영 현존을 현시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기원 존재들은 이 도움자들의 근접성을

function. They are not concerned with the records of your life and its doings; they are not in any sense recording personalities. The Census Director of Nebadon, number 81,412 of Orvonton, now stationed on Salvington, is at this very moment personally conscious and aware of your living presence here on Urantia; and he will afford the records confirmation of your death the moment you cease to function as a will creature.

24:2.8 (267.6) Census Directors register the existence of a new will creature when the first act of will is performed; they indicate the death of a will creature when the last act of will takes place. The partial emergence of will observed in the reactions of certain of the higher animals does not belong to the domain of the Census Directors. They keep count of nothing but bona fide will creatures, and they are responsive to nothing but *will function*. Exactly how they register the function of will, we do not know.

24:2.9 (267.7) These beings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Census Directors. They would be comparatively useless in any other division of universe labor. But they are infallible in function; they never default, neither do they falsify. And notwithstanding their marvelous powers and unbelievable prerogatives, they are persons; they have recognizable spirit presence and form.

3.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24:3.1 (268.1) We have no authentic knowledge as to the time or manner of the creation of the Personal Aids. Their number must be legion, but it is not of record on Uversa. From conservative deductions based on our knowledge of their work, I venture to estimate that their number extends high into the trillions. We hold the opinion that the Infinite Spirit is not limited as to numbers in the creation of these Personal Aids.

24:3.2 (268.2) The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exist for the exclusive assistance of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Third Person of Deity. Although attached directly to the Infinite Spirit and located on Paradise, they flash to and fro to the uttermost parts of creation. Wherever the circuits of the Conjoint Creator extend, there these Personal Aids may appear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he bidding of the Infinite Spirit. They traverse space much as do the Solitary Messengers but are not persons in the sense that the messengers are.

24:3.3 (268.3) The Personal Aids are all equal and identical; they disclose no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ity. Though the Conjoint Actor looks upon them as true personalities, it is difficult for others to regard them as real persons; they do not manifest a spirit presence to other spirit beings. Paradise-origin beings are always aware of the

항상 인식하지만; 우리는 어떤 개인성 현존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한 현존-형체의 결여가 그들로 하여금 신(神)의 셋째 개인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영 존재들의 계시된 계층들 전체 중에서, 개인 도움자들은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만나게 될 거의 유일한 존재들이다.

제 4 장. 연관-동료 검열자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구체에 있는 일곱 최극집행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을 위한 최고 관리인들의 행정-관리적 기구로서 집단으로 기능한다.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에 대한 최극집행자의 권한에 대한 개인적 체현이다. 지역 창조계의 관련사들에 대한 이 높은 관찰자들은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과 무한한 영의 공동 자손이다. 영원에 가까운 시절에, 700,000명이 개인성구현되었고, 그들의 예비무리단은 파라다이스에 주둔하고 있다.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직접적 감독 아래에서 활동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에게 그들의 개인적이고도 힘 있는 대표자들이 된다. 한 명의 검열자가 각 지역 창조의 본부 구체에 주둔하며, 거주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 이의 가까운 동료이다.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오직 그들의 종속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지역체계들의 수도들에 주둔하는 배정된 파수자들로부터 보고와 추천을 접수하여 받아들이는 반면, 그들은 그들의 직속 상급자, 관련된 초우주의 최극집행자에게만 보고한다.

제 5 장. 배정된 파수자

배정된 파수자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들 그리고 연락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에 의해 파라다이스에서 개인성구현되었고 그들의 임무의 특별한 목적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70억 명이 실존하고 있다.

연관-동료 검열자가 지역우주 전체에게 일곱 최극집행자들을 대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지역 창조의 10,000개 체계들마다 배정된 파수자가 있는데, 그는 멀리-떨어진 그리고 모든 일곱 초우주들의 관련사를 위한 초(超)통제의 최극 관리기관의 직접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오르본톤의 지역 체계 정부들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파수자들은 일곱 번째 초우주의 조화-협동자인 7번 최극집

proximity of these Aids; but we do not recognize a personality presence. The lack of such a presence-form undoubtedly renders them all the more serviceable to the Third Person of Deity.

24:3.4 (268.4) Of all the revealed orders of spirit beings taking origin in the Infinite Spirit, the Personal Aids are about the only ones you will not encounter on your inward ascent to Paradise.

4. THE ASSOCIATE INSPECTORS

24:4.1 (268.5)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n the seven Paradise spheres of the Infinite Spirit, collectively function as the administrative board of supermanagers for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Associate Inspectors are the personal embodiment of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Executives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se high observers of the affairs of the local creations are the joint offspring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In the near times of eternity seven hundred thousand were personalized, and their reserve corps abides on Paradise.

24:4.2 (268.6) Associate Inspectors work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being their personal and powerful representatives to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 inspector is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sphere of each local creation and is a close associate of the resident Union of Days.

24:4.3 (268.7) The Associate Inspectors receiv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ly from their subordinates, the Assigned Sentinels,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of inhabited worlds, while they make reports only to their immediate superior, the Supreme Executive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5. THE ASSIGNED SENTINELS

24:5.1 (268.8) The Assigned Sentinels are coordinating personalities and liaison representative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They were personalized on Paradise by the Infinite Spirit and were created for the specific purposes of their assignment. They are of stationary numbers, and there are exactly seven billion in existence.

24:5.2 (269.1) Much as an Associate Inspector represents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to a whole local universe, so in each of the ten thousand systems of that local creation there is an Assigned Sentinel, who acts as the direct representative of the far-distant and supreme board of supercontrol for the affairs of all seven superuniverses. The sentinels on duty in the local system governments of Orvonton are acting under

행자의 직접적인 권한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정-관리적 조직에서 지역우주에 임명된 모든 파수자들은 우주 본부에 주둔하는 연관-동료 검열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지역 창조에서 배정된 파수자들은 체계에서 체계로 이동하며, 돌아가며 봉사하는데, 그들은 대개 지역우주 시간으로 매 1,000년마다 바뀐다. 그들은 체계 수도에 주둔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개인성들에 속하지만, 체계 관련사와 관련된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역체계 안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 출신인 24명의 행정-관리자들의 직권상 우두머리로서 봉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거의 그들과 만나지 않는다. 파수자들은 그들이 배정된 체계들의 복지와 형편에 관계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주의 연관-동료 검열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일에 거의 배타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배정된 파수자들과 연관-동료 검열자들은 초우주 본부를 통하여 최극집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련된 초우주의 최극집행자에게만 의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옛적으로 늘게신의 관리-행정과 뚜렷이 구분된다.

최극집행자들, 연관-동료 검열자들, 그리고 배정된 파수자들은, 전(全)천사들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개인성들의 무리와 함께,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며 집중되었지만 멀리-퍼지는, 물체들과 존재들의 대우주 전체에 대한 자문과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의 체계를 구성한다.

제 6 장. 졸업생 안내자

졸업생 안내자들은 여러 시대들의 목표에 대한 필사자의 달성 즉: 하느님, 휴식, 그리고 그 다음의 완전하게 된 봉사의 영원에 너무나도 근본적인 기술적 안내와 영적 훈련의 고등 대학을 후원하고 수행한다. 매우 개인적인 이 존재들은 그들의 일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정해진다. 그들은 시간의 초우주들로부터의 필사자 졸업생들을 안내하여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훈과 훈련의 하보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다.

나는 이 졸업생 안내자들의 역할을 너희에게 말하지 말도록 금지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개념을 물질적 마음에게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 시야가 확장되고 너희가 물질적 비교의 족쇄로부터 해방된 후에,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

the direct authority of Supreme Executive Number Seven, the co-ordinator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But in thei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l sentinels commissioned in a local universe are subordinate to the Associate Inspector stationed at universe headquarters.

24:5.3 (269.2) Within a local creation the Assigned Sentinels serve in rotation, being transferred from system to system. They are usually changed every millennium of local universe time. They are among the highest ranking personalities stationed on a system capital, but they never participate in deliberations concerned with system affairs. In the local systems they serve as the ex officio heads of the four and twenty administrators hail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but otherwise, ascending mortals have little contact with them. The sentinels are almost exclusively concerned in keeping the Associate Inspector of their universe fully informed o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and state of the systems of their assignment.

24:5.4 (269.3) Assigned Sentinels and Associate Inspectors do not report to the Supreme Executives through a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responsible solely to the Supreme Executive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their activities are distinct from the administr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24:5.5 (269.4) The Supreme Executives, Associate Inspectors, and Assigned Sentinels, together with the omniaphim and a host of unrevealed personalities, constitute an efficient, direct, centralized, but far-flung system of advisory and administrative co-ordination of all the grand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6. THE GRADUATE GUIDES

24:6.1 (269.5) The Graduate Guides, as a group, sponsor and conduct the high university of technical instruction and spiritual training which is so essential to mortal attainment of the goal of the ages: God, rest, and then eternity of perfected service. These highly personal beings take their name from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ir work. They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tasks of guiding the mortal graduates from the superuniverses of time through the Havona course of instruction and training which serves to prepare the ascending pilgrims for admission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24:6.2 (269.6) I am not forbidden to undertake to tell you of the work of these Graduate Guides, but it is so ultraspiritual that I despair of being able to adequately portray to the material mind a concept of their manifold activities. On the mansion worlds, after your vision range is extended and you are freed from the fetters of material comparisons, you

는,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개념들"인 실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영원한 진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느님이 준비해 오신" 그 사물들의 의미를 너희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시야와 영적 이해력의 범위에서 항상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일곱 순환회로들을 통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을 선도(先導)하는 일에 참여한다. 외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접수 세계에 너희가 도착할 때 반겨주는 그 안내자는 천상의 순환회로들에서의 너희 생애에 두루 너희와 계속 동행하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수십억 개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다른 개인성들과 수도 없이 연관관계를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졸업생 안내자는 너희의 하보나 진보의 끝까지 너희를 따라갈 것이고 시간의 마지막 수면, 파라다이스 목표지를 향한 영원 변환의 잠을 너희가 자는 것을 목격할 것인데, 그곳에서 깨어나게 되면, 너희는 너희를 환영하도록 예정되고 또한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일원으로 가입될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남아 있게 될지도 모르는 파라다이스 동행자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졸업생 안내자들의 숫자는 인간 마음의 파악하는 힘을 벗어나며, 그들은 계속 출현한다. 그들의 기원은 신비한 어떤 것이다. 그들은 영원으로부터 존재되어온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온 세월에 걸쳐서 첫 번째 필사자 순례자가, 그의 여정이 중앙 창조의 외부 지대에 이르렀던 까마득히 먼 날까지는 중앙우주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졸업생 안내자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순례자가 외부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처음 도착한 순간, 순례자는 말보리안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첫 번째 졸업생 안내자이자, 지금은 그들의 최극 협의회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광대한 교육 조직의 지도자이다.

하보나의 파라다이스 기록부의, "졸업생 안내자"라고 명명된 부분에 이러한 첫 기록이 보인다:

"이 계층의 첫 번째인 말보리안이 하보나의 순례자 발견자를 환영하고 가르쳤으며, 모든 개인성의 근원이자 운명의 바로 그 현존 속에 그가 설 때까지 그리고 그 후 연이어서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영원의 문턱을 넘어갈 때까지 초기 체험의 외부 순환회로들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회로 한 회로 그를 행위로 이끌었다."

아득히 먼 그 때 나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되었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 초우주로부터의 순례자들이 결국에는 하보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을 향유하였다. 공간의 진화적 창조체들이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배워 왔었으며, 첫 번째 순례자가 실재적으로 도착할 때 모든 시간의 감격스러움이 천상의 궁정들을 휩쓸었다.

can begin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ose realities which "eye cannot see nor ear hear, and which have never entered the concept of human minds," even those things which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such eternal verities." You are not always to be so limited in the range of your vision and spiritual comprehension.

24:6.3 (270.1) The Graduate Guides are engaged in piloting the pilgrims of time through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worlds. The guide who greets you upon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 of the outer Havona circuit will remain with you throughout your entire career on the heavenly circuits. Though you will associate with countless other personalities during your sojourn on a billion worlds, your Graduate Guide will follow you to the end of your Havona progression and will witness your entrance into the terminal slumber of time, the sleep of eternity transit to the Paradise goal, where, upon awakening, you will be greeted by the Paradise Companion assigned to welcome you and perhaps to remain with you until you are initiated as a member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24:6.4 (270.2) The number of Graduate Guides is beyond the power of human minds to grasp, and they continue to appear. Their origin is something of a mystery. They have not existed from eternity; they mysteriously appear as they are needed. There is no record of a Graduate Guide in all the realms of the central universe until that far-distant day when the first mortal pilgrim of all time made his way to the outer belt of the central creation. The instant he arrived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circuit, he was met with friendly greetings by Malvorian, the first of the Graduate Guides and now the chief of their supreme council and the director of their vast educational organization.

24:6.5 (270.3) On the Paradise records of Havona, in the section denominated "Graduate Guides," there appears this initial entry:

24:6.6 (270.4) "And Malvorian, the first of this order, did greet and instruct the pilgrim discoverer of Havona and did conduct him from the outer circuits of initial experience, step by step and circuit by circuit, until he stood in the very presence of the Source and Destiny of all personality, subsequently crossing the threshold of eternity to Paradise."

24:6.7 (270.5) At that far-distant time I was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and we all rejoiced in the assurance that, eventually, pilgrims from our superuniverse would reach Havona. For ages we had been taught that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space would attain Paradise, and the thrill of all time swept through the heavenly courts when the first pilgrim actually arrived.

하보나의 이 순례 발견자의 이름은 그랜판다이며, 그는 1번 초우주 안에 있는 1,131번 지역우주의 62번 별자리에 있는 84번 체계의 341번 행성으로부터 흩어져 나왔다. 그의 도착은 우주들의 우주의 방송 서비스를 설립하기 위한 신호였다. 그때까지는 초우주들과 지역우주들의 방송들만이 작동되어 왔지만, 그러나 하보나의 입구에 그랜판다가 도착하였다는 발표는 “영광스러운 공간 보고서들”이 게시됨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은 상승하는 실존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 첫 번째 진화적 존재들의 하보나 도착을 첫 우주 방송이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며;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졸업생 순례자들의 봉사에 전념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생존과 상승을 가져오도록 고안된 일정한 그리고 모든 것이-완전하게 된 계획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언젠가 이 고귀한 존재들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제 7 장.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진화는 중앙우주의 질서가 아니지만, 우리는 졸업생 안내자들이 중앙우주 창조체들 중 완전하게 된 또는 더욱 체험된 다른 조직의 성원들, 하보나 봉사원들이라고 믿는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우주적 사명활동의 하보나 봉사원으로서 초우주 영역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이 문화를 그들이 획득해 왔다고 우리가 확신할 만큼 상승 창조체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동정심과 능력을 보여준다. 만일 이 관점이 틀린다면, 선배 봉사원들 또는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봉사원들의 계속적인 사라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봉사원은 그전에 가졌던 그러한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초우주 임무를 위해 하보나로부터 오랫동안 떠나게 될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와 파라다이스 중앙 빛남과 “개인적 접촉”을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빛나는 개인들에 의해 포옹될 것이며, 그의 영 동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라지고 자신과 같은 종류의 그들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초우주 봉사로부터 돌아오면, 하보나 봉사원은 수많은 신성한 포옹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단순히 고양된 봉사원으로 떠오른다. 빛나는 포옹을 체험하는 것은, 봉사원이 반드시 졸업생 안내자로 변환되어야만 함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신성한 포옹을 성취한 그들 중 거의 4분의 1은 영역들의 봉사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고등(高等)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연속된 기록들이 보인다:

24:6.8 (270.6) The name of this pilgrim discoverer of Havona is *Grandfanda*, and he hailed from planet 341 of system 84 in constellation 62 of local universe 1,131 situated in superuniverse number one. His arrival was the sign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roadcast servic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retofore only the broadcasts of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had been in operation, but the announcement of the arrival of Grandfanda at the portals of Havona signalized the inauguration of the “space reports of glory,” so named because the initial universe broadcast reported the Havona arrival of the first of the evolutionary beings to attain entrance upon the goal of ascendant existence.

24:6.9 (270.7) Graduate Guides never leave the Havona worlds; they are dedicated to the service of the graduate pilgrims of time and space. And you will sometime meet these noble beings face to face if you do not reject the certain and all-perfected plan designed to effect your survival and ascension.

7. ORIGIN OF THE GRADUATE GUIDES

24:7.1 (270.8) Though evolution is not the order of the central universe, we believe that the Graduate Guides are the perfected or more experienced members of another order of central universe creatures, the Havona Servitals. Graduate Guides show such a breadth of sympathy and such a capacity for understanding the ascendant creatures that we are convinced they have gained this culture by actual service in the superuniverse realms as the Havona Servitals of universal ministry. If this view is not correct, how then can we account for the continuous disappearance of the senior or more experienced servitals?

24:7.2 (271.1) A servital will be long absent from Havona on superuniverse assignment, having been on many such missions previously, will return home, be granted the privilege of “personal contact” with the Paradise Central Shining, will be embraced by the Luminous Persons, and disappear from the recognition of his spirit fellows, never more to reappear among those of his kind.

24:7.3 (271.2) On returning from superuniverse service, a Havona Servital may enjoy numerous divine embraces and emerge therefrom merely an exalted servital. Experiencing the luminous embrace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that the servital must translate into a Graduate Guide, but almost one quarter of those who achieve the divine embrace never return to the service of the realms.

24:7.4 (271.3) There appears on the high records a succession of such entries as this:

“수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보나의 842,842,682,846,782번 봉사원이 초우주 봉사로부터 돌아왔고, 파라다이스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아버지를 알았고, 신성한 품으로 들어갔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록이 나타날 때, 그러한 봉사원의 생애가 마감된다. 그러나 세 순간 동안 (너희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짧은) 새로 태어난 졸업생 안내자가 “자발적으로” 하보나 우주의 외부 순환회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이동 중에 있는 그들로 인하여 생기는 미세한 차이를 살펴보면 졸업생 안내자들의 숫자는 사라진 봉사원들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졸업생 안내자들이 하보나 봉사원으로부터 진화된다고 추측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안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봉사원들이 어김없이 그렇게 특별한 애착을 갖는 경향이다. 별도의 계층으로 생각되는 이 존재들이 서로 납득하고 동정심을 갖는 그 방법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호 헌신을 목격하는 일은 기분을 좋게 하고 영감을 준다.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연관된 일곱 최극 힘지도자들 각각은 그가 아직 개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최극존재의 마음 잠재의 그리고 힘 잠재의 개인적 저장소들이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동료들이 하보나 봉사원을 창조하도록 협동할 때, 후자(後者)는 최극위의 일정한 위상들 속에 선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재성에서 하보나 봉사원들은 시간-공간 권역들에서의 진화적 잠재성들의 완전한 중앙우주 안에서의 반영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봉사원이 변환과 재-창조를 겪을 때 드러내어진다. 우리는 이 변환이 분명히 최극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무한한 영의 의지에 응답하여 일어난다고 믿는다. 졸업생 안내자들은 최극존재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체험적 신(神)이 이들 존재들이 실존하게 된 그러한 활동행위들 속에 어떤 면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지금 횡단하고 있는 하보나는 그것이 그랜환다의 시대 이전에 그러하였던 중앙우주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보나 순환회로들에의 필사자 상승자들의 도착은 중앙 그리고 신성한 창조의 조직 속에서의 전면적인 변형들,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그의 체험적 자녀들 중 첫 번째가 도착하는 것에 응답하여 최극존재—진화적 창조체들의 하느님—에 의해 반드시 시작되는 변형들을 개시하였다. 졸업생 안내자들의 출현은, 3차 초(超)천사의 창조와 함께, 최극자 하느님의 이 행위들을 암시한다.

24:7.5 (271.4) “And servital number 842,842,682,846,782 of Havona, named Sudna, came over from the superuniverse service, was received on Paradise, knew the Father, entered the divine embrace, and is not.”

24:7.6 (271.5) When such an entry appears on the records, the career of such a servital is closed. But in just three moments (a little less than three days of your time) a newborn Graduate Guide “spontaneously” appears on the outer circuit of the Havona universe. And the number of Graduate Guides, allowing for a slight difference, due no doubt to those in transition, exactly equals the number of vanished servitals.

24:7.7 (271.6) There is an additional reason for supposing the Graduate Guides to be evolved Havona Servitals, and that is the unfailing tendency of these guides and their associated servitals to form such extraordinary attachments. The manner in which these supposedly separate orders of beings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one another is wholly inexplicable. It is refreshing and inspiring to witness their mutual devotion.

24:7.8 (271.7)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 associated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respectively, are the personal repositories of the mind potential and of the power potential of the Supreme Being which he does not, as yet, operate personally. And when these Paradise associates collaborate to create the Havona Servitals, the latter are inherently involved in certain phases of Supremacy. Havona Servitals are thus, in actuality, a reflection in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of certain evolutionary potentialities of the time-space domains, all of which is disclosed when a servital undergoes transformation and re-creation. We believe that this transformation takes place in response to the will of the Infinite Spirit, undoubtedly acting in behalf of the Supreme. Graduate Guides are not created by the Supreme Being, but we all conjecture that experiential Deity is in some way concerned in those transactions which bring these beings into existence.

24:7.9 (271.8) The Havona now traversed by ascending mortals differs in many respects from the central universe as it was before the times of Grandfanda. The arrival of mortal ascenders on the Havona circuits inaugurated sweeping modifications in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and divine creation, modifications undoubtedly initiated by the Supreme Being — the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 in response to the arrival of the first of his experiential children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appearance of the Graduate Guides, together with the creation of the tertiary supernaphim, is indicative of these performances of God the Supreme.

[유버사의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24:7.10 (271.1)}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of Uversa.]

제 25 편 공간의 메신저 무리

⇨ 024

유랜시아 책

026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5 편 공간의 메신저 무리

섹션

소개

제 1 장. 하보나 봉사원

제 2 장. 우주화해자

제 3 장. 화해자의 멀리-미치는 봉사

제 4 장. 기술 충고자

제 5 장. 파라다이스에 있는 기록보호관
리자

제 6 장. 천상의 기록자

제 7 장. 모론시아 동행자

제 8 장. 파라다이스 동행자

PAPER 25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Havona Servitals

2. The Universal Conciliators

3. The Far-Reaching Service of Conciliators

4. Technical Advisers

5. The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6. The Celestial Recorders

7. The Morontia Companions

8. The Paradise Companions

소개

무한한 영의 계보 중 중간에 위치한 것은 공간의 메신저 무리이다.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높은 개인성들 그리고 사명활동 영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 메신저 무리는 다음과 같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한다:

1. 하보나 봉사원.
2. 우주화해자.
3. 기술 충고자.
4. 파라다이스 기록의 보호관리자.
5. 천상의 기록자.
6. 모론시아 동행자.
7. 파라다이스 동행자.

열거된 일곱 집단들 중에서, 오직 셋만이—봉사원들, 화해자들, 그리고 모론시아 동행자들—그렇게 창조되었다; 나머지 넷은 천사 계층의 달성 차원들을 대변(代辯)한다. 선천적인 본성과 달성된 지위에 따라서, 그 메신저 무리는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하지만, 그들이 배정된

INTRODUCTION

25:0.1 (273.1) RANKING intermediately in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are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These versatile beings function as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higher personalities and the ministering spirits. The messenger hosts include the following orders of celestial beings:

25:0.2 (273.2) 1. Havona Servitals.

25:0.3 (273.3) 2. Universal Conciliators.

25:0.4 (273.4) 3. Technical Advisers.

25:0.5 (273.5) 4.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25:0.6 (273.6) 5. Celestial Recorders.

25:0.7 (273.7) 6. Morontia Companions.

25:0.8 (273.8) 7. Paradise Companions.

25:0.9 (273.9) Of the seven groups enumerated, only three — servitals, conciliators, and Morontia Companions — are created as such; the remaining four represent attainment levels of the angelic orders. In accordance with inherent nature and attained status, the messenger hosts

그 영역들을 통치하는 자들의 지도에 항상 복종한다.

variously serv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always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ose who rule the realms of their assignment.

제 1 장. 하보나 봉사원

봉사원이라고 명명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우주의 이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그 말의 경멸적인 의미를 담은 하인들이 아니다. 영적 세계들에는 그러한 것이 시시한 일이 아니며; 모든 봉사는 신성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비교적 높은 계층의 존재들이 비교적 낮은 실존 계층들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하보나 봉사원은 일곱 주(主) 영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공동 창조적 작품이다. 이러한 창조적 협동은 진화적 우주들 안에 있는 2원(二元) 계층의 긴 재생산 목록들을 위한 원형들이 되기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데, 위로는 창조자 아들-창조 영 연락에 의한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로부터 아래로는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서의 성적(性的) 출산에까지 이른다.

봉사원들의 숫자는 엄청나며, 항상 더 많이 창조되고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가장 북쪽 구역에 있는 그들의 공동 경기장에서 주(主) 영들과 최극 힘 지도자들의 조합 이후 세 번째 순간에 1,000명 단위로 나타난다. 네 번째 봉사원마다 다른 경우보다 더 물질적인 유형을 가지며; 다시 말하자면, 각 1,000명마다, 750명은 영 유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250명은 본질적으로 반(半)-물질적이다. 이 네 번째 창조체들은 어느 정도 물리적 존재들의 계층에 해당되는데(하보나 의미로는 물질적), 주(主) 영들 보다는 물리적 힘 지도자들을 더 닮는다.

개인성 관계들 안에서, 비록 유란시아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지배한다; 하보나 봉사원의 생산에 있어서는 영 지배의 법칙이 우세하다; 확정된 비율로 한 명의 반(半)물리적 존재마다 세 영적 존재들이 산출된다.

새롭게 창조된 봉사원들은 모두, 새롭게 출현하는 졸업생 안내자들과 함께,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 각각에서 선배(先輩) 안내자들이 계속해서 행위로 이끄는 훈련 과정들을 통과한다. 봉사원들은 그 때 그들이 가장 잘 적응되는 활동들에게 배정되며, 그 후로 그들은 두 유형들—영적 그리고 반-물질적—이 되는데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비교적 높은 집단들 또는 영(靈) 집단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봉사에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을 돌고 있는 연구(研究) 세계들에서 봉사하도록 때때로 큰 무리를 지어 보냄을 받는데, 그 세계들은 하보나의 순환회로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의 상승하는 혼들의 최

1. THE HAVONA SERVITALS

25:1.1 (273.10) Though denominated servitals, these “midway creature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not servants in any menial sense of the word. In the spiritual world there is no such thing as menial work; all service is sacred and exhilarating; neither do the higher orders of beings look down upon the lower orders of existence.

25:1.2 (273.11) The Havona Servitals are the joint creative work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ir associates,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This creative collaboration comes the nearest to being the pattern for the long list of reproductions of the dual order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extending from the creation of a Bright and Morning Star by a Creator Son-Creative Spirit liaison down to sex procreation on worlds like Urantia.

25:1.3 (273.12) The number of servitals is prodigious, and more are being created all the time. They appear in groups of one thousand on the third moment following the assembly of the Master Spirits and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t their joint area in the far northerly sector of Paradise. Every fourth servital is more physical in type than the others; that is, out of each thousand, seven hundred and fifty are apparently true to spirit type, but two hundred and fifty are semiphysical in nature. These *fourth creatures* are somewhat on the order of material beings (material in the Havona sense), resembling the physical power directors more than the Master Spirits.

25:1.4 (274.1) In personality relationships the spiritual is dominant over the material, even though it does not now so appear on Urantia; and in the production of Havona Servitals the law of spirit dominance prevails; the established ratio yields three spiritual beings to one semiphysical.

25:1.5 (274.2) The newly created servitals, together with newly appearing Graduate Guides, all pass through the courses of training which the senior guides continuously conduct on each of the seven Havona circuits. Servitals are then assigned to the activities for which they are best adapted, and since they are of two types — spiritual and semiphysical — there are few limits to the range of work these versatile beings can do. The higher or spirit groups are assigned selectively to the service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nd to the work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large numbers they are dispatched, from time to time, to serve on the study worlds encircling the headquarters spheres of the seven

종적 훈련 그리고 영적 문화에 헌신되어 있다. 영 봉사원들 그리고 더욱 물리적인 그들의 동료들 모두는, 하보나를 달성한 그리고 파라다이스 달성을 추구하는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도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졸업생 안내자들의 보좌관들 그리고 연관-동료들로 지명되기도 한다.

하보나 봉사원과 졸업생 안내자들은 그들의 일에 초월적인 헌신을 그리고 서로를 위한 감동적인 애정, 너희가 오직 인간 사랑의 현상으로서만 납득할 수 있는, 그러나 전혀 영적인 애정을 현시한다. 봉사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듯이, 중앙우주의 한계를 넘어서 임무를 띠고 파송될 때, 안내자들과 봉사원들의 이별에는 신성한 애절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간다. 높은 의무에 대한 만족스러운 기쁨은 영적 존재들에게 앞서는 감정이다. 신실하게 수행되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의식(意識) 앞에서 슬픔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상승하는 혼이 최극 심판관 앞에 설 때, 영원한 의미에서의 결정은 물질적인 성공 또는 양적인 성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고등 법원들을 통해 올려 퍼지는 판결은 이렇게 선언한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신실하였다; 너는 우주 실체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될 것이다.”

초우주 봉사에 임할 때 하보나 봉사원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영 특권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닮은 주(主) 영에 의해 지배되는 그 권역에 항상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수도를 돌고 있는 교육적 세계들에서만 봉사하며, 유버사의 최종 보고서는 그것의 490개 위성들에서 거의 1,380억 명의 봉사원들이 사명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르본톤 초우주의 초월적-대학들을 포함하는 이 교육적 세계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끝없이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너희의 동행자가 된다; 그들은 너희를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의 영역들을 향해 시간의 우주들로부터 너희가 결국 생겨나는 졸업의 실체성과 확실성을 너희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너희의 다음 생애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들을 함에 있어서, 그 봉사원들은 졸업생 안내자들의 연관-동료들로서 또는—변형된 봉사원들로서—졸업생 안내자들 자신들로서 하보나 순환회로들 위에서 그들이 그 후에 일할 때 큰 도움을 얻는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사명활동 예비적인 체험을 획득한다.

제 2 장. 우주화해자

창조된 각각의 하보나 봉사원 마다, 각 초우

superuniverses, the worlds devoted to the final training and spiritual culture of the ascending souls of time who are preparing for advancement to the circuits of Havona. Both spirit servitals and their more physical fellows are also designated assistants and associates of the Graduate Guides in helping and instructing the various orders of ascending creatures who have attained Havona, and who seek to attain Paradise.

25:1.6 (274.3)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Graduate Guides manifest a transcendent devotion to their work and a touching affection for one another, an affection which, while spiritual, you could only understand by comparison with the phenomenon of human love. There is divine pathos in the separation of the servitals from the guides, as so often occurs when the servitals are dispatched on missions beyond the limits of the central universe; but they go with joy and not with sorrow. The satisfying joy of high duty is the eclipsing emotion of spiritual beings. Sorrow cannot exist in the face of the consciousness of divine duty faithfully performed. And when man's ascending soul stands before the Supreme Judge, the decision of eternal import will not be determined by material successes or quantitative achievements; the verdict reverberating through the high courts declare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essentials; you shall be made ruler over universe realities."

25:1.7 (274.4) On superuniverse service the Havona Servitals are always assigned to that domain presided over by the Master Spirit whom they most resemble in general and special spirit prerogatives. They serve only on the educational worlds surrounding the capital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e last report of Uversa indicates that almost 138 billion servitals were ministering on its 490 satellites. They engage in an endless variety of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these educational worlds comprising the superuniversitie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Here they are your companions; they have come down from your next career to study you and to inspire you with the reality and certainty of your eventual graduation from the universes of time to the realms of eternity. And in these contacts the servitals gain that preliminary experience of ministering to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which is so helpful in their subsequent work on the Havona circuits as associates of the Graduate Guides or — as translated servitals — as Graduate Guides themselves.

2. THE UNIVERSAL CONCILIATORS

25:2.1 (275.1) For every Havona Servital created,

주에서 한 명씩, 일곱 우주화해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 창조적 사건은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하는 활동행위들에 대해 반영적으로 응답하는 분명한 초우주 기법을 포함한다.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는 일곱 주(主) 영들의 일곱 반영들이 기능한다. 이 반영 영들의 본성들을 물질적 마음들에게 묘사하는 일은 어렵다. 그들은 진정한 개인성들이지만; 초우주 집단의 각 성원(要員)은 일곱 주(主) 영들 중 단 하나를 완전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하보나 봉사원의 어떤 집단을 창조하는 목적으로 주(主) 영들이 힘 지도자들과 스스로 연관할 때마다, 그 초우주 집단들 각각에 반영 영들 중 하나에 동시적 초점화 구현이 일어나고, 같은 숫자의 우주화해자가 그 초(超)창조들의 본부 세계들 위에 즉시 그리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봉사원들의 창조에 있어서 만일 7번 주(主) 영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면, 오직 일곱 번째 계층의 반영 영들만이 화해자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오르본톤을-닮은 1,000명의 봉사원들이 창조됨과 동시에, 1,000명의 일곱 번째 계층 화해자들이 각 초우주 수도에 나타날 것이다. 주(主) 영들의 칠중 본성을 반영하는, 이들 에피소드로부터, 각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창조된 일곱 계층들의 화해자들이 출현한다.

파라다이스-이전(以前) 지위의 화해자들은 초우주들 사이를 오가며 봉사하지는 않는데, 그들이 태어난 창조 지역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창조된 각 계층 중 7분의 1을 포함하여, 각 초우주 무리단은 다른 존재들을 제외할 정도로 주(主) 영들의 영향 아래에서 매우 긴 기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일곱 전체가 초우주 수도들에서 반영되는 반면 오직 하나만이 각 초(超)창조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일곱 초(超)창조들 각각에는 그것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主) 영들 중 하나가 실제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각 초우주는 감독하는 주(主) 영의 본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처럼 되며, 또한 이 모두는 창조 어머니 영들의 현존과 기능에 의해 각 하위(下位) 지역우주 안에서 더욱 계속된다. 진화적 성장에 대한 그러한 환경의 영향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들의 초우주-이후 생애에서 화해자들은 49개 체험적 관점들, 곧 통찰력들을, 각자가 각도를 이루면서—이에 따라서 불완전하게—현시 하는 데, 그러나 모두가 상호 보완적이며 또한 함께 최극위의 순환계를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각 초우주 안에서 우주화해자는 자신들이 기묘하게, 그리고 네 개의 집단, 그들이 계속 봉사하

seven Universal Conciliators are brought into being, one in each superuniverse. This creative enactment involves a definite superuniverse technique of reflective response to transactions taking place on Paradise.

25:2.2 (275.2)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function the seven reflec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difficult to undertake to portray the natures of these Reflective Spirits to material minds. They are true personalities; still each member of a superuniverse group is perfectly reflective of just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very time the Master Spirits associate themselves with the power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group of Havona Servitals, there is a simultaneous focalization upon one of the Reflective Spirits in each of the superuniverse groups, and forthwith and full-fledgedly an equal number of Universal Conciliators appear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creations. If, in the creation of servitals, Master Spirit Number Seven should take the initiative, none but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seventh order would become pregnant with conciliators; and concurrently with the creation of one thousand Orvontonlike servitals, one thousand of the seventh-order conciliators would appear on each superuniverse capital. Out of these episodes, reflecting the sevenfold nature of the Master Spirits, arise the seven created orders of conciliators serving in each superuniverse.

25:2.3 (275.3) Conciliators of pre-Paradise status do not serve interchangeably between superuniverses, being restricted to their native segments of creation. Every superuniverse corps, embracing one seventh of each created order, therefore spends a very long time under the influence of one of the Master Spirits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s, for, while all seven are *reflected* on the superuniverse capitals, only one is *dominant* in each supercreation.

25:2.4 (275.4)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is actually pervaded by that one of the Master Spirits who presides over its destinies. Each superuniverse thus becomes like a gigantic mirror reflecting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and all of this is further continued in every subsidiary local universe by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the Creative Mother Spirits. The effect of such an environment upon evolutionary growth is so profound that in their postsuperuniverse careers the conciliators collectively manifest forty-nine experiential viewpoints, or insights, each angular — hence incomplete — but all mutually compensatory and together tending to encompass the circle of Supremacy.

25:2.5 (275.5) In each superuniverse the Universal Conciliators find themselves strangely and innately

는 관계적-연합들로 태생적으로 갈라져 있음을 발견한다. 각 집단마다, 셋은 영 개인성들이고, 하나는 봉사원들 중 네 번째 창조체와 마찬가지로 반-물질적 존재이다. 이 4인조가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심판-중재자. 그 집단의 법적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상으로 분별화되었다고 다른 셋에 의해 만장일치로 지명된 자.

2. 영-대변자. 화해 위원회가 판결하도록 배정된 어떤 문제 안에 포함된 모든 개인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를 제시하도록 심판-중재자에 의해 지명된 자.

3. 신성한 집행자. 영역들의 물질적 존재들과 접촉을 이룩하기 위해 그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해 선천적 본성에 따라 분별화되는 화해자. 네 번째 창조체들—제4 물질적 존재들—인, 신성한 집행자들은 필사자 인종들의 짧은 시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볼 수 있다.

4. 기록자. 위원회의 나머지 성원은 자동적으로 기록자, 법정 서기가 된다. 그는 그 지역우주의 기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초우주의 문서들을 위하여 모든 자료들이 잘 준비되도록 확인한다. 만일 그 위원회가 진화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세 번째 보고서가, 집행자의 보고를 받아, 사법권의 체계 정부의 물리적 기록들을 위해 준비된다.

심리 중에 있는 위원회는 3명이 집단을 이루어 기능하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재판 중에는 분리되어 있고 청문회의 결론 부분에서만 판결문 작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들은 3인조 심판관들이라고 불린다.

화해자들은 우주들의 우주가 잘 운행되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세라핌천사의 3배 속도 비율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그들은 그 세계들의 이동 법정, 사소한 어려움들을 빨리 판결하도록 헌신된 위원회로서 봉사한다. 기동력이 있고 매우 공정한 이 위원회가 없었다면, 그 구체들의 법정들은 영역들의 사소한 오해들로 뒤덮여서 소망을 잃을 것이다.

이 3인조 심판관들은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다; 혼, 시간의 창조체의 영원한 가능성은 그들의 활동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는 법이 없다. 화해자들은 시간의 창조체들의 일시적 실존과 조화우주 복지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문제에 대한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면 후에는, 그것의 통치가 최종적이고 항상 일치 한다; 심판-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다.

segregated into groups of four, associations in which they continue to serve. In each group, three are spirit personalities, and one, like the fourth creatures of the servitals, is a semimaterial being. This quartet constitutes a conciliating commission and is made up as follows:

25:2.6 (275.6) 1. *The Judge-Arbiter.* The one unanimously designated by the other three as the most competent and best qualified to act as judicial head of the group.

25:2.7 (275.7) 2. *The Spirit-Advocate.* The one appointed by the judge-arbiter to present evidence and to safeguard the rights of all personalities involved in any matter assigned to the adjudication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

25:2.8 (276.1) 3. *The Divine Executioner.* The conciliator qualified by inherent nature to make contact with the material beings of the realms and to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commission. Divine executioners, being fourth creatures — quasi-material beings — are almost, but not quite, visible to the short-range vision of the mortal races.

25:2.9 (276.2) 4. *The Recorder.* The remaining member of the commission automatically becomes the recorder, the clerk of the tribunal. He makes certain that all records are properly prepared for the archives of the superuniverse and for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If the commission is serving on an evolutionary world, a third report, with the assistance of the executioner, is prepared for the physical records of the system government of jurisdiction.

25:2.10 (276.3) When in session a commission functions as a group of three since the advocate is detached during adjudication and participates in the formulation of the verdict only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Hence these commissions are sometimes called referee trios.

25:2.11 (276.4) The conciliators are of great value in keep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running smoothly. Traversing space at the seraphic rate of triple velocity, they serve as the traveling courts of the worlds, commissions devoted to the quick adjudication of minor difficulties. Were it not for these mobile and eminently fair commissions, the tribunals of the spheres would be hopelessly overspread with the minor misunderstandings of the realms.

25:2.12 (276.5) These referee trios do not pass upon matters of eternal import; the soul, the eternal prospects of a creature of time, is never placed in jeopardy by their acts. Conciliators do not deal with questions extending beyond the temporal existence and the cosmic welfare of the creatures of time. But when a commission has once accepted jurisdiction of a problem, its rulings are final and always unanimous; there is no appeal

from the decision of the judge-arbiter.

제 3 장. 화해자의 멀리-미치는 봉사

화해자들은 그들의 초우주의 수도에 집단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곳에 그들의 1차 예비무리단들이 주둔한다. 그들의 2차 예비무리단들은 지역 우주들의 수도에 주둔한다.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체험이 적은 위원들은 비교적 낮은 세계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들에서 그들의 봉사를 시작하며, 그들이 성숙한 체험을 이룬 후에 더 큰 문제들을 판결하도록 파견된다.

화해자들의 계층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다. 지혜와 판결에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명백한 의존성을 가지며 충성심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 그들은 초우주의 본부에서 기원되고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우주 봉사 차원들을 통해 진보 한다:

1. 세계에 대한 화해자. 개별 세계들의 감독하는 개인성들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의 적절한 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난처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영역의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 앞으로 가져갈 만큼 중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각 논쟁 편마다 하나씩, 두 개인성들의 청원을 받아, 화해하는 위원회가 즉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정-관리적 그리고 사법적 문제들이 심리와 판결을 위해 그 화해자들에게 부여될 때, 그들은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청취하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증인을 소환하는 그들의 권한에 어떤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어떤 때에는 문제들이 너무 진전되어서 그 위원회가 주어진 어떤 관점에서 그 기록들을 중단하고, 그 견해들을 결론지으며, 모든 질문들을 영역의 더 높은 법정으로 보낸다.

그 위원들의 결정들은 행성 기록부에 기록되고, 만일 필요하다면 신성한 집행자들에 의해 시행된다. 이 권세는 매우 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의 그의 활동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신성한 집행자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것에 대한 흥미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능란한 조종자들이다. 그들의 활동은 때로 영역의 명백한 복지를 위해 수행되고, 때로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그들의 행동이 설득되기 어렵다. 자연 법칙이나 영역의 정해진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법령을 집행하지만, 그들은 흔히 체계 관리-행정 중 비교적 높은 법에

3. THE FAR-REACHING SERVICE OF CONCILIATORS

25:3.1 (276.6) Conciliators maintain group headquarters on the capital of their superuniverse, where their primary reserve corps is held. Their secondary reserves are stationed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The younger and less experienced commissioners begin their service on the lower worlds, worlds like Urantia, and are advanced to the adjudication of greater problems after they have acquired ripper experience.

25:3.2 (276.7) The order of conciliators is wholly dependable; not one has ever gone astray. Though not infallible in wisdom and judgment, they are of unquestioned reliability and unerring in faithfulness. They take origin on the headquarters of a superuniverse and eventually return thereto, advancing through the following levels of universe service:

25:3.3 (276.8) 1. *Conciliators to the Worlds.* Whenever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of the individual worlds become greatly perplexed or actually deadlocked concerning the proper procedure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and if the matter is not of sufficient importance to be brought before the regularly constituted tribunals of the realm, then, upon the receipt of a petition of two personalities, one from each contention, a conciliating commission will begin to function forthwith.

25:3.4 (277.1) When these administrative and jurisdictional difficulties have been placed in the hands of the conciliators for study and adjudication, they are supreme in authority. But they will not formulate a decision until all the evidence has been heard, and there is absolutely no limit to their authority to call witnesses from anywhere and everywhere. And while their decisions may not be appealed, sometimes matters so develop that the commission closes its records at a given point, concludes its opinions, and transfers the whole question to the higher tribunals of the realm.

25:3.5 (277.2) The commissioners' decisions are placed on the planetary records and, if necessary, are put into effect by the divine executioner. His power is very great, and the range of his activities on an inhabited world is very wide. Divine executioners are masterful manipulators of that which is in the interests of that which ought to be. Their work is sometimes carried out for the apparent welfare of the realm, and sometimes their act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re difficult of explanation. Though executing decrees

따라 그들의 비범한 일들을 수행하고 화해자들의 명령을 집행한다.

2. 체계 본부에 대한 화해자. 진화 세계들에서의 봉사로부터, 이 4인 위원회는 체계 본부에서의 임무로 향상된다. 여기에서 그들이 할 일이 많으며,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그리고 다른 영 존재들의 납득하는 친구가 되는 것을 입증한다. 3인조 심판관들은 개인적 차이들보다는 집단 주장에 그리고 서로 다른 창조체 계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영적인 존재들과 물질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물질아들들과 같은 병합된 유형들도 살고 있다.

창조자들이 진화하는 개별존재들로 하여금 선택의 힘을 가지고 실존하게 만드는 순간, 그 순간 신성한 완전의 순조로운 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이 만들어진다; 오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관점에서의 이들 정직한 차이에 대한 공정한 조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지혜와 모든-힘을 지니고 있는 창조자들이 지역우주를 하보나와 똑같이 완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야만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그 어떤 화해하는 위원회의 기능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창조자들은 자신들의 모든-지혜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차이가 넘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우주들을 산출해 온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차이들을 수습하고 이 모든 나타나 보이고 있는 혼란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능구조와 수단들을 마련하였다.

3. 별자리 화해자. 화해자들은 체계들 안에서의 봉사로부터 별자리의 문제들을 판결하는 일로 승진되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100개 체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맡는다. 별자리 본부에서 발전되는 문제들에서 그들의 관할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예비적인 진술문들을 준비하느라고 체계에서 체계로 계속 바쁘게 움직인다. 만일 주장이 정직하다면, 어려움이 진정한 의견 차이와 정직한 관점의 다양성으로부터 일어난다면, 아무리 소수의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화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4. 지역우주에 대한 화해자. 우주의 비교적 큰 이 일에서 위원들은 멜기세덱들과 치안법관 아들들에게, 그리고 100개 별자리들에 대한 조화-협동과 관리-행정에 관여하는 별자리 통치자들 그리고 개인성들의 무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지역우주의 본부 구체에 속한 다른 세라핌천사 계층들

in defiance of neither natural law nor the ordained usages of the realm, they do oftentimes effect their strange doings and enforce the mandates of the conciliator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laws of the system administration.

25:3.6 (277.3) 2. *Conciliators to the System Headquarters.* From service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se commissions of four are advanced to duty on a system headquarters. Here they have much work to do, and they prove to be the understanding friends of men, angels, and other spirit beings. The referee trios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personal differences as with group contentions and with misunderstandings arising between different orders of creatures; and on a system headquarters there live both spiritual and material beings, as well as the combined types, such as the Material Sons.

25:3.7 (277.4) The moment the Creators bring into existence evolving individuals with the power of choice, that moment a departure is made from the smooth working of divine perfection; misunderstandings are certain to arise, and provision for the fair adjustment of these honest differences of viewpoint must be made. We should all remember that the all-wise and all-powerful Creators could have made the local universes just as perfect as Havona. No conciliating commissions need function in the central universe. But the Creators did not choose in their all-wisdom to do this. And while they have produced universes which abound in differences and teem with difficulties, they have likewise provided the mechanisms and the means for composing all these differences and for harmonizing all this seeming confusion.

25:3.8 (277.5) 3. *The Constellation Conciliators.* From service in the systems the conciliators are promoted to the adjudication of the problems of a constellation, taking up the minor difficulties arising between its one hundr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Not many problems developing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all under their jurisdiction, but they are kept busy going from system to system gathering evidence and preparing preliminary statements. If the contention is honest, if the difficulties arise out of sincere differences of opinion and honest diversity of viewpoints, no matter how few persons may be involved, no matter how apparently trivial the misunderstanding, a conciliating commission can always be had to pass upon the merits of the controversy.

25:3.9 (277.6) 4. *Conciliators to the Local Universes.* In this larger work of a universe the commissioners are of great assistance to both the Melchizedeks and the Magisterial Sons and to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the hosts of personalities concerned with the co-ordination and

그리고 다른 거주민들 역시 3인조 심판관들의 도움과 결정에 참여한다.

체계, 별자리, 또는 우주의 자세한 관련사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차이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움들이 조성되지만, 그것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사는 것과 같은 물질적 실존의 하찮은 시련들 그리고 진통들과는 매우 다르다.

5. 초우주 소구역에 대한 화해자. 지역우주들의 문제들로부터, 취역자들은 그들의 초우주의 소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그들이 개별 행성들로부터 안쪽을 향하여 멀리 상승하면 할수록, 신성한 집행자의 물질적 의무들은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며; 그는 점차적으로 자비-공의 통역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는데, 동시에—제4의 물질적—그 조사의 물질적 측면과의 동정심 어린 접촉에 있어서 전체로서 위원회를 유지한다.

6. 초우주 대구역에 대한 화해자. 위원장들의 활동의 성격은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판단해야 할 오해는 점점 줄어들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 신비한 현상들은 점점 더 늘어난다.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그들은 차이들의 중재자들로부터 신비 해석가들—해석하는 선생들로 진화하는 심판관들—로 진화한다. 그들은 한때, 무지로 인하여 어려움들과 오해들이 발생되게 하는 그들의 중재자였지만, 그들은 이제 마음의 충돌과 견해의 투쟁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능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자들의 강사들이 되고 있다. 창조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는 다른 창조체들의 지식과 체험과 견해들을 더욱 존중한다.

7. 초우주에 대한 화해자. 여기에서 화해자들은 조화-협동하는—4명의 상호 납득하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중재자-교사들이 된다. 신성한 집행자는 되갚는 능력을 제거 당하고 삼인조 영의 물리적 음성이 된다. 이때가 되면 이 조연자들과 선생들은 초우주 관련사들을 수행하면서 만나는 실제적 문제들과 어려움들 중 대부분에 노련하게 숙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구체들의 거주지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훌륭한 충고자들 그리고 현명한 선생들이 된다.

모든 화해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전반적 감독 아래에서 그리고 영상 도움자들의 직접적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파라다이스로 진보할 그러한 때까지 봉사한다.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초우주를 관장하는 주

administration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different orders of seraphim and other residents of the headquarters spheres of a local universe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help and decisions of the referee trios.

25:3.10 (278.1)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lain the nature of those differences which may arise in the detailed affairs of a system, a constellation, or a universe. Difficulties do develop, but they are very unlike the petty trials and travails of material existence as it is liv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25:3.11 (278.2) 5.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Minor Sectors.* From the problems of local universes the commissioners are advanced to the study of questions arising in the minor sectors of their superuniverse. The farther they ascend inward from the individual planets, the fewer are the material duties of the divine executioner; gradually he assumes a new role of mercy-justice interpreter, at the same time — being quasi-material — keeping the commission as a whole in sympathetic touch with the material aspects of its investigations.

25:3.12 (278.3) 6.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Major Sectors.* The character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ers continues to change as they advance. There is less and less of misunderstanding to adjudicate and more and more of mysterious phenomena to explain and interpret. From stage to stage they are evolving from arbiters of differences to *explainers of mysteries* — judges evolving into interpretative teachers. Arbiters of those who through ignorance permit difficulties and misunderstandings to arise, they once were; but they are now becoming instructors of those who are sufficiently intelligent and tolerant to avoid clashes of mind and wars of opinions. The higher a creature's education, the more respect he has for the knowledge, experience, and opinions of others.

25:3.13 (278.4) 7. *Conciliators to the Superuniverse.* Here the conciliators become co-ordinate — four mutually understood and perfectly functioning arbiter-teachers. The divine executioner is divested of retributive power and becomes the physical voice of the spirit trio. By this time these counselors and teachers have become expertly familiar with most of the actual problems and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conduct of superuniverse affairs. Thus they become wonderful advisers and wise teachers of the ascending pilgrims who are in residence on the educational spheres surrounding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25:3.14 (278.5) All conciliators serv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Image Aids until such time as they are advanced to Paradise. During the Paradise sojourn they report to the Master Spirit

(主) 영에게 보고한다.

초우주 기록부는 그들의 관할권 밖에 벗어나 있었던 그 화해자들을 계수(計數)하지 않으며, 그러한 위원회들은 대우주 전반에 널리 흩어져 있다. 유버사에서 최종 등록 보고서는 오르본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숫자가 거의 18조(兆)개의 위원회—70조(兆) 명 이상의 개별존재들—에 이르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직 오르본톤 안에서 창조되어 온 화해자들 군중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 숫자는 훨씬 더 크고, 졸업생 안내자들로 변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하보나 봉사원의 전체 숫자와 동등하다.

때때로, 초우주 화해자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완전의 협의회로 전환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주들의 우주를 위해 무한한 영에 의해 진화된 조화-협동하는 무리단으로서 그들이 뒤이어서 창발하며, 그들은 숫자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훌륭한 존재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체험적 상승과 파라다이스 훈련에 의해 최극존재의 창발 하는 실체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획득해 왔으며,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우주들의 우주를 돌아다닌다.

화해하는 위원회의 성원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4개의 집단이, 그들이 기원적으로 연관되었던 것과 똑같이, 함께 언제까지나 봉사한다. 심지어는 그들의 영화롭게 된 봉사에 있어서도, 그들은 축적된 조화우주 체험과 완전해진 체험적 지혜의 4인조로서 계속 기능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최극 공의(公義)의 체현으로서 영원히 연관되어 있다.

제 4 장. 기술 충고자

영 세계의 이 법적 그리고 기술적 마음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의 초(超)천사들 그리고 전(全)천사들로부터, 가장 계층적인 마음들 중 백만 명이 무한한 영에 의해 이 광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핵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 먼 시간 이래로, 진화적 창조의 계획에 대한 완전의 법칙들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실재적 체험이 기술충고자들이 되기로 열망하는 모두에게 요구되어 왔다.

기술충고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인성 계층의 계층들로부터 모집된다:

1. 초(超)천사.
2. 2품천사.
3. 3품천사.

who presides over the superuniverse of their origin.

25:3.15 (278.6) The superuniverse registries do not enumerate those conciliators who have passed beyond their jurisdiction, and such commissions are widely scattered through the grand universe. The last report of registry on Uversa gives the number operating in Orvonton as almost eighteen trillion commissions — over seventy trillion individuals. But these are only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multitude of conciliators that have been created in Orvonton; that number is of an altogether higher magnitude and is the equivalent of the total number of Havona Servitals, with allowances for the transmutation into Graduate Guides.

25:3.16 (278.7) From time to time, as the numbers of the superuniverse conciliators increase, they are translated to the council of perfection on Paradise, from which they subsequently emerge as the co-ordinating corps evolved by the Infinite Spirit for the universe of universes, a marvelous group of beings which is constantly increasing in numbers and efficiency. By experiential ascent and Paradise training they have acquired a unique grasp of the emerging reality of the Supreme Being, and they roam the universe of universes on special assignment.

25:3.17 (279.1) The members of a conciliating commission are never separated. A group of four forever serve together just as they were originally associated. Even in their glorified service they continue to function as quartets of accumulated cosmic experience and perfected experiential wisdom. They are eternally associated as the embodiment of the supreme justice of time and space.

4. TECHNICAL ADVISERS

25:4.1 (279.2) These legal and technical minds of the spirit world were not created as such. From the early supernaphim and omniaphim, one million of the most orderly minds were chosen by the Infinite Spirit as the nucleus of this vast and versatile group. And ever since that far-distant time, actual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perfection to the plans of evolutionary creation has been required of all who aspire to become Technical Advisers.

25:4.2 (279.3) The Technical Advisers are recruited from the ranks of the following personality orders:

- 25:4.3 (279.4) 1. The Supernaphim.
- 25:4.4 (279.5) 2. The Seconaphim.
- 25:4.5 (279.6) 3. The Tertiaphim.

4. 전(全)천사.

5. 세라핌천사.

6. 상승하는 필사자의 특정 유형.

7. 상승하는 중도자의 특정 유형.

현재, 모두가 과도기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필사자들과 중도자들을 제외하고,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고 오르본톤 안에서 활동하는 기술충고자들의 숫자는 61조(兆) 명을 조금 넘는다.

기술충고자들은 종종 개별존재들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봉사를 위해 조직되어 있고 일곱을 집단으로 배정된 그 구체들 위에 공동 본부를 유지한다. 각 집단 안에서 적어도 다섯 명은 영원한 지위를 가져야만 되는 반면 두 명은 일시적 관계적-연합에 소속될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 상승을 추구하면서 이 자문 위원회들에서 봉사하지만, 그들은 기술충고자들을 위한 정규 훈련 과정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층의 영원한 일원(一員)이 결코 되지 않는다.

충고자들과 함께 과도기적으로 봉사하는 필사자들과 그리고 중도자들이 그러한 일에 선택된 것은 우주적 법칙과 최극 공의의 개념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성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해 여행하면서 추가된 지식과 증진된 기술을 계속 취득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가 이미 축적해 온 지혜와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받게 된다; 하보나에 이르는 동안 내내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는 학생-선생의 역할을 한다. 너희는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에 대한 새로-발견된 지식을 너희들 바로 밑에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이 광대한 체험적 대학의 상승하는 차원들을 통해 애써서 너희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주 체제 안에서 너희는 이 지식과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하는 너희 기꺼운 마음과 능력을 실증하기 전까지는 지식과 진리를 너희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긴 훈련과 실제적 체험을 가진 후에는, 케루빔의 지위 상위에 있는 사명활동 영들 중 누구든지 기술충고자들로서 영원히 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후보자들이 이 봉사 계층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러한 의무들을 일단 시작한 후에는,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이만이 이 충고자들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지역우주들의 펠기세텍 대학들에서 시작된 기술충고자들에 대한 훈련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 초우주 훈련으로부터, 그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선도(先導) 세계들에 위치한 “일곱 순환계들의 학교”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선도(先導) 세계들로부터, 그들은 “최극위의 기법과 법 윤리대학”, 기술충고자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파라다이스 훈련 학교에

25:4.6 (279.7) 4. The Omniaphim.

25:4.7 (279.8) 5. The Seraphim.

25:4.8 (279.9) 6. Certain Types of Ascending Mortals.

25:4.9 (279.10) 7. Certain Types of Ascending Midwayers.

25:4.10 (279.11) At the present time, not counting the mortals and midwayers who are all of transient attachment, the number of Technical Advisers registered on Uversa and operating in Orvonton is slightly in excess of sixty-one trillion.

25:4.11 (279.12) Technical Advisers frequently function as individuals but are organized for service and maintain common headquarters on the spheres of assignment in groups of seven. In each group at least five must be of permanent status, while two may be of temporary association. Ascending mortals and ascending midway creatures serve on these advisory commissions while pursuing the Paradise ascent, but they do not enter the regular courses of training for Technical Advisers, nor do they ever become permanent members of the order.

25:4.12 (279.13) Those mortals and midwayers who serve transiently with the advisers are chosen for such work because of their expertness in the concept of universal law and supreme justice. As you journey toward your Paradise goal, constantly acquiring added knowledge and enhanced skill, you are continuously afforded the opportunity to give out to others the wisdom and experience you have already accumulated; all the way in to Havona you enact the role of a pupil-teacher. You will work your way through the ascending levels of this vast experiential university by imparting to those just below you the new-found knowledge of your advancing career. In the universal regime you are not reckoned as having possessed yourself of knowledge and truth until you have demonstrated your ability and your willingness to impart this knowledge and truth to others.

25:4.13 (280.1) After long training and actual experience, any of the ministering spirits above the status of cherubim are permitted to receive permanent appointment as Technical Advisers. All candidates voluntarily enter this order of service; but having once assumed such responsibilities, they may not relinquish them. Only the Ancients of Days can transfer these advisers to other activities.

25:4.14 (280.2) The training of Technical Advisers, begun in the Melchizedek colleges of the local universes, continues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From this superuniverse training they proceed to the “schools of the seven circles” located on the pilot worlds of the Havona circuits. And from the pilot worlds they are received into the “college of the ethics of law and the technique of

받아들여진다.

이 충고자들은 법률 숙련자 이상이다; 그들은 적용되는 법, 멀리 퍼지는 창조의 광대한 권역들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삶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들의 학생들인 동시에 선생들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살아있는 법 도서관이 되는데, 영원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정의 형태들 그리고 형식들과 관계되는 시간의 개인성들을 가르침으로써 끝없는 재난과 쓸모없는 지연을 방지한다.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의 요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공간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의 기법과 관계하는 모든 창조체들의 선생들이다.

적용된 법의 그러한 살아있는 도서관은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존재들은 실제적 체험에 의해 진화되어야만 한다. 무한한 신(神)들은 실존적이고, 따라서 체험 부족을 보정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체험하기 전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만, 그들은 이러한 비(非)체험적인 지식을 그들의 종속 창조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

기술충고자들은 지연을 막고 진보를 촉진시키고 성취를 조언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올바른 길이 항상 존재한다; 완전의 기법, 신성한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이 충고자들은 더 나은 이 길을 찾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안다.

엄청나게 현명하고 실천적인 이 존재들은 우주 검열자들의 봉사 그리고 활동과 항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멜기세덱들에게는 유능한 무리단이 제공되어 있다. 체계들과 별자리들과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 구역들의 통치자들 모두에게는 영적 세계의 이들 기술적 또는 법적 참조가 되는 마음들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다. 특별한 집단이 생명운반자들에게 법 조언자들로 활동하는데, 생명 번식에 대한 확립된 계층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충고하고 아니면 기능에 대한 그들의 특권과 범위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모든 영-세계 활동행위들의 적당한 활동과 기법들에 관여하는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 대한 충고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역들의 물질적 창조체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법적 활용에 관한 조언 이외에도, 기술충고자들은 창조체 존재들—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에 관한 모든 법들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우주화해자에게 그리고 법의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모든 다른 자들에게 유용하게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확립된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계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반응하는 것에 신(神)의 최극위가 어떻게 의존될 수도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다른 자들에게 유용하

Supremacy," the Paradise training school for the perfecting of Technical Advisers.

25.4.15 (280.3) These advisers are more than legal experts; they are students and teachers of *applied* law, the laws of the universe applied to the lives and destinies of all who inhabit the vast domains of the far-flung creation. As time passes, they become the living law libraries of time and space, preventing endless trouble and needless delays by instructing the personalities of time regarding the forms and modes of procedure most acceptable to the rulers of eternity. They are able so to counsel the workers of space as to enable them to function in harmon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dise; they are the teachers of all creatures concerning the technique of the Creators.

25.4.16 (280.4) Such a living library of applied law could not be created; such beings must be evolved by actual experience. The infinite Deities are existential, hence are compensated for lack of experience; they know all even before they experience all, but they do not impart this nonexperiential knowledge to their subordinate creatures.

25.4.17 (280.5) Technical Advisers are dedicated to the work of preventing delay, facilitating progress, and counseling achievement. There is always a *best* and *right* way to do things; there is always the technique of perfection, a divine method, and these advisers know how to direct us all in the finding of this better way.

25.4.18 (280.6) These exceedingly wise and practical beings are alway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ervice and work of the Universal Censors. The Melchizedeks are provided with an able corps. The rulers of the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 sectors are all bountifully supplied with these technical or legal reference minds of the spiritual world. A special group act as law counselors to the Life Carriers, advising these Sons concerning the extent of permissible departure from the established order of life propagation and otherwise instructing them respecting their prerogatives and latitudes of function. They are the advisers of all classes of beings regarding the proper usages and techniques of all spirit-world transactions. But they do not directly and personally deal with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s.

25.4.19 (280.7) Besides counseling regarding legal usages, Technical Advisers are equally devoted to the efficient interpretation of all laws concerning creature beings —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They are available to the Universal Conciliators and to all others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of law; in other words, to know how the Supremacy of Deity may be depended upon to react in a given situation having factors of an established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order. They even essay to

다. 그들은 심지어 궁극자의 기법까지 명료하게 하려고 시도한다.

기술충고자들은 선택되고 시험된 존재들이다; 내가 아는 한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그토록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그 신성한 법들을 경멸하였다고 그들이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유버사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의 봉사 권역에는 알려진 제한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보에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은 심지어 파라다이스의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충고자의 역할을 계속 한다; 법과 체험의 전체 우주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

제 5 장. 파라다이스에 있는 기록보호관리자

하보나에 있는 3차 초(超)천사들 가운데로부터, 일정한 선배 기록자 우두머리들이 기록보호관리자로서, 빛의 섬의 공식 글들의 보관자로서 선택되는데, 그 문서들은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명명되는 지식 보호관리자들의 마음 안에 등록된 살아있는 기록들과 대조를 이룬다.

거주되는 행성들의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개별적 기록들의 근원이다. 우주들에 두루 다른 기록자들이 공식 기록들 그리고 살아있는 기록들 둘 모두에 관하여 기능한다. 유란시아로부터 파라다이스로, 두 기록들을 모두 만나는데: 지역우주 안에서는, 더 많은 쓰인 기록들과 더 적은 살아있는 기록들이 가능하고; 파라다이스에서는, 더 많은 살아있는 기록과 더 적은 공식 기록이 가능하고; 유버사에서는 둘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다.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안에서 의의(意義)를 지닌 모든 발생사건이 기록의 대상이다. 지역적 중요성에 불과한 사건들은 오직 지역적 기록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비교적 넓은 의의(意義)를 갖는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취급된다. 네바돈의 행성들과 체계들과 별자리들로부터, 우주 중요성을 갖는 모든 것이 구원자별에서 공표 된다; 그 구역과 초(超)정부들의 관련사들에 속하는 비교적 높은 기록부에게로 그러한 우주 수도들로부터 그 에피소드들이 올라간다. 파라다이스 역시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 자료의 관련 요약물 소유 한다; 우주들의 우주의 이 역사적 그리고 누적 진술은 고양된 이 3차 초(超)천사가 보관한다.

이 존재들 중 특정인들이 천상의 기록자들의 활동들을 지도하는 기록 우두머리들로서 봉사하도록 초우주들에게 보냄을 받는 반면, 어느 하나도 그들의 계층의 영원한 출석 점호로부터 이전(移轉)되지 않았다.

elucidate the technique of the Ultimate.

25:4.20 (281.1) Technical Advisers are selected and tested beings; I have never known one of them to go astray. We have no records on Uversa of their ever having been adjudged in contempt of the divine laws they so effectively interpret and so eloquently expound. There is no known limit to the domain of their service, neither has any been placed upon their progress. They continue as advisers even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 whole universe of law and experience is open to them.

5. THE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25:5.1 (281.2) From among the tertiary supernaphim in Havona, certain of the senior chief recorders are chosen as Custodians of Records, as keepers of the formal archives of the Isle of Light, those archives which stand in contrast to the living records of registry in the minds of the custodians of knowledge, sometimes designated the “living library of Paradise.”

25:5.2 (281.3) The recording angels of the inhabited planets are the source of all individual records. Throughout the universes other recorders function regarding both formal records and living records. From Urantia to Paradise, both recordings are encountered: in a local universe, more of the written records and less of the living; on Paradise, more of the living and less of the formal; on Uversa, both are equally available.

25:5.3 (281.4) Every occurrence of significance in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s a matter of record. While events of no more than local importance find only a local recording, those of wider significance are dealt with accordingly. From the planets, systems, and constellations of Nebadon, everything of universe import is posted on Salvington; and from such universe capitals those episodes are advanced to higher recording which pertain to the affairs of the sector and supergovernments. Paradise also has a relevant summary of superuniverse and Havona data; and this historic and cumulative sto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in the custody of these exalted tertiary supernaphim.

25:5.4 (281.5) While certain of these being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superuniverses to serve as Chiefs of Records directing the activities of the Celestial Recorders, not one has ever been transferred from the permanent roll call of their order.

제 6 장. 천상의 기록자

이들은 모든 기록들을 복사하는 기록자들인데, 원본 영 기록과 반(半)물질적 사본—복사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을 만든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그리고 물질적 에너지 둘 모두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천상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창조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들로부터의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들에 있는 기록 우두머리들의 협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분류되고 그들의 작업 구체에 배정된다. 거기에는 훈련하는 천상의 기록자들을 위한 학교도 위치하고 있다. 유버사에 있는 학교는 지혜의 완전자들과 신성한 조언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기록자들이 우주 봉사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할 때, 그들은 2중으로 기록하는 그들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기록들이 물질적 계층으로부터 높은 빛의 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게 항상 가능하게 만든다. 너희의 변환 체험에 있어서, 이 물질적 세계로부터 너희가 상승할 때, 너희는 너희가 속한 구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록들을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정통할 수 있다.

기록자들은 시험을 받고 단련된 무리단이다. 천상의 기록자들이 변절하였다는 말을 나는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그들의 기록에 오류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2중의 검열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록들은 유버사로부터 고양된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그리고 원본 영 기록들의 준-물질적 사본들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막강한 메신저들에 의해 세밀히 검사된다.

오르본톤 안에 있는 하위 기록 구체들 위에 주둔하는 승진하는 기록자들의 숫자가 수 조(兆)에 이르지만, 유버사에서 지위를 획득한 자들의 숫자는 8백만 명이 되지 않는다. 이 선배 또는 졸업생 기록자들은 초우주 보호관리자들이며 시간과 공간의 보증된 기록들의 전달자들이다. 그들의 영원한 본부는 유버사에 있는 기록 장소 주변에 있는 원형 거주지들 안에 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위해 이 기록들을 보호하는 일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들이 개별존재로서 떠날 수는 있지만 많은 숫자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록보호관리자들이 되어 온 그 초(超)천사들처럼, 천상의 기록자 무리단은 영원한 임무에 속한다. 세라핌천사들과 초(超)천사들이 일단 이 봉사에 소집되면, 그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충만한 개인성구현에 대한 새롭고도 변형된 관리-행정의 그 날까지 기록보호관리자들 그리고 천상의 기록자들로서 각각 남아 있을 것이다.

6. THE CELESTIAL RECORDERS

25:6.1 (281.6) These are the recorders who execute all records in duplicate, making an original spirit recording and a semimaterial counterpart — what might be called a carbon copy. This they can do because of their peculiar ability simultaneously to manipulate both spiritual and material energy. Celestial Recorders are not created as such; they are ascendant seraphim from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received, classified, and assigned to their spheres of work by the councils of the Chiefs of Records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re also are located the schools for training Celestial Recorders. The school on Uversa is conducted by the Perfectioners of Wisdom and the Divine Counselors.

25:6.2 (281.7) As the recorders advance in universe service, they continue their system of dual recording, thus making their records always available to all classes of beings, from those of the material order to the high spirits of light. In your transition experience, as you ascend from this material world, you will always be able to consult the records of, and to be otherwise conversant with,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your status sphere.

25:6.3 (282.1) The recorders are a tested and tried corps. Never have I known of the defection of a Celestial Recorder, and never has there been discovered a falsification in their records. They are subjected to a dual inspection, their records being scrutinized by their exalted fellows from Uversa and by the Mighty Messengers, who certify to the correctness of the quasi-physical duplicates of the original spirit records.

25:6.4 (282.2) While the advancing recorders stationed on the subordinate spheres of record in the Orvonton universes number trillions upon trillions, those of attained status on Uversa are not quite eight million in number. These senior or graduate recorders are the superuniverse custodians and forwarders of the sponsored records of time and space. Their permanent headquarters are in the circular abodes surrounding the area of records on Uversa. They never leave the custody of these records to others; as individuals they may be absent, but never in large numbers.

25:6.5 (282.3) Like those supernaphim who have become Custodians of Records, the corps of Celestial Recorders is of permanent assignment. Once seraphim and supernaphim are mustered into these services, they will respectively remain Celestial Recorders and Custodians of Records until the day of the new and modified administration of the full personalization of God the Supreme.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도착한 아득히 먼 시절 이후에 오르본톤 전체에서 아주 중요성을 가진 모든 것의 기록을 이 선배 천상의 기록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영원한 섬에서는 무한한 영이 개인화구현된 시절 이후에 파라다이스의 활동행위들을 증거 하는, 영역의 기록 보관소를 기록보호관리자들이 지킨다.

제 7 장. 모론시아 동행자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이 자녀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삶을 사는 전체의 친구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이다. 그들은 창조체 진보에 해당하는 상승자의 실제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파라다이스 여행에서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종종 대동하는 세라핌 천사 수호자들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도 대신하지 않는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안쪽을 향한 긴 상승을 막 시작하는 그들에게 단순히 상냥한 집주인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놀이 후원자들이고 복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훌륭하게 돕는다.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훈련세계들에서 수행하기에 중대하고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임무들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휴식과 전환의 정규기간들이 항상 제공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여행에 두루 휴식과 영 놀이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생애에 있어서는 경배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너희가 모론시아 체험의 마지막 위상을 최종적으로 떠날 때, 너희가 초우주 영 모험여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들 동행할 창조체들이 너희를 따라올 수 없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친근한 연관-동료들이지만, 그들은 오직 지역우주들 안에서만 봉사한다. 상승하는 생애의 각 단계마다 접촉 가능한 모든 개인성들이 친근하고 사귄 만 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토록 친구신분과 동행자신분에 헌신된 다른 집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활동은 너희 지역우주의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그 이야기들 속에 더 충분히 묘사되어 있다.

제 8 장. 파라다이스 동행자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세라핌천사들과 2품 천사들과 초(超)천사들 그리고 전(全)천사들의 계급들로부터 모집된 혼합적 또는 결집된 집단이다. 너희가 특별한 기간의 시간으로 간주하게 될 동안 봉사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 사명활동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그러나 일정한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봉사에 소환될 때 수행하였던 그 임무들에게로 돌

25:6.6 (282.4) On Uversa these senior Celestial Recorders can show the records of everything of cosmic import in all Orvonton since the far-distant times of the arrival of the Ancients of Days, while on the eternal Isle the Custodians of Records guard the archives of that realm which testify to the transactions of Paradise since the times of the personification of the Infinite Spirit.

7. THE MORONTIA COMPANIONS

25:7.1 (282.5) These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are the friends and associates of all who live the ascending morontia life. They are not indispensable to an ascender's real work of creature progression, neither do they in any sense displace the work of the seraphic guardians who often accompany their mortal associates on the Paradise journey. The Morontia Companions are simply gracious hosts to those who are just beginning the long inward ascent. They are also skillful play sponsors and are ably assisted in this work by the reversion directors.

25:7.2 (282.6) Though you will have earnest and progressively difficult tasks to perform on the morontia training worlds of Nebadon, you will always be provided with regular seasons of rest and reversion. Throughout the journey to Paradise there will always be time for rest and spirit play; and in the career of light and life there is always time for worship and new achievement.

25:7.3 (282.7) These Morontia Companions are such friendly associates that, when you finally leave the last phase of the morontia experience, as you prepare to embark upon the superuniverse spirit adventure, you will truly regret that these companionable creatures cannot accompany you, but they serve exclusively in the local universes. At every stage of the ascending career all contactable personalities will be friendly and companionable, but not until you meet the Paradise Companions will you find another group so devoted to friendship and companionship.

25:7.4 (283.1) The work of the Morontia Companions is more fully depicted in thos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your local universe.

8. THE PARADISE COMPANIONS

25:8.1 (283.2) The Paradise Companions are a composite or assembled group recruited from the ranks of the seraphim, seconaphim, supernaphim, and omniaphim. Though serving for what you would regard as an extraordinary length of time, they are not of permanent status. When this ministry has been completed, as a rule (but not invariably) they return to those duties they

아간다.

천사(天使) 무리의 성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에 의해, 초우주 반영 영들에 의해, 그리고 파라다이스 장엄자에 의해 이 봉사에 지명된다. 그들은 중앙 섬으로 소환되고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 의해 파라다이스 동행자들로써 임명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영원한 지위는 제외하고, 파라다이스 동행자신분의 이 일시적 봉사는 사명활동 영들에게 영원히 부여되는 가장 고귀한 명예이다.

선택된 이 천사들은 동행자신분의 봉사에 전념하고, 홀로 파라다이스에 있을 기회가 있는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게, 주로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또한 중앙 섬에 홀로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동료들로서 배정된다.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그들이 형제우애관계를 가지는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취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동행자일 뿐이다. 너희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동안 만나게 될 거의 모든 다른 존재는—너희 동료 순례자들은 제외하고—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분명한 어떤 일을 갖고 있지만; 이 동행자들은 오직 너희와 함께 있도록 그리고 개인성 동료들로서 너희와 교제하도록 배정된다. 상냥하고 총명한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그들의 사명활동을 종종 돕는다.

필사자들은 매우 사회적인 인종들로부터 온다. 창조자들은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음”을 잘 알며, 심지어 파라다이스에서도 동행자신분에 대한 배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만일 너희가,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이 세상 생애에서의 너희의 동행자나 가까운 연관-동료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또는 만일 너희 운명수호 세라핌천사가 어찌다가 너희와 함께 도착하거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영구적인 동행자도 너희에게 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홀로 도착한다면, 빛의 섬 위에서 시간에서의 끝을 맺는 잠으로부터 너희가 깨어날 때 한 동행자가 분명히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상승하는 어떤 동료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동행자들이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환영하도록 그리고 너희와 너희 동료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준비된 예약 석으로 너희를 안내하도록 지명되어 있을 것이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해안에서 영원 안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할 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임을 굳게 믿어도 좋다.

하보나의 마지막 순환회로에 그 상승자들이 머무는 마지막 날들 동안 접대하는 동행자들이 배정되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과 하보나의 순환계들을 통한 다사다난했던 상승과 필사자 기원에 관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한다. 그들이 시간의 필사자들을 환영할 때, 그들은 도착하는 이 순례자들의 생애에 이미 잘 통달해 있으며 동정심 많고 호기심 많은 동행자들이 됨을 즉각적으로 증명한다.

performed when summoned to Paradise service.

25:8.2 (283.3) Members of the angelic hosts are nominated for this service by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by the superuniverse Reflective Spirits, and by Majeston of Paradise. They are summoned to the central Isle and are commissioned as Paradise Companions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ide from permanent status on Paradise, this temporary service of Paradise companionship is the highest honor ever conferred upon the ministering spirits.

25:8.3 (283.4) These selected angels are dedicated to the service of companionship and are assigned as associates to all classes of beings who may chance to be alone on Paradise, chiefly to the ascendant mortals but also to all others who are alone on the central Isle. Paradise Companions have nothing especial to accomplish in behalf of those with whom they fraternize; they are simply companions. Almost every other being you mortals will encounter during your Paradise sojourn — aside from your fellow pilgrims — will have something definite to do with you or for you; but these companions are assigned only to be with you and to commune with you as personality associates. They are often assisted in their ministry by the gracious and brilliant Paradise Citizens.

25:8.4 (283.5) Mortals come from races that are very social. The Creators well know that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and provision is accordingly made for companionship, even on Paradise.

25:8.5 (283.6) If you, as an ascendant mortal, should reach Paradise in the company of the companion or close associate of your earthly career, or if your seraphic guardian of destiny should chance to arrive with you or were waiting for you, then no permanent companion would be assigned you. But if you arrive alone, a companion will certainly welcome you as you awaken on the Isle of Light from the terminal sleep of time. Even if it is known that you will be accompanied by someone of ascendant association, temporary companions will be designated to welcome you to the eternal shores and to escort you to the reservation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you and your associates. You may be certain of being warmly welcomed when you experience the resurrection into eternity on the everlasting shores of Paradise.

25:8.6 (283.7) Reception companions are assigned during the terminal days of the ascenders' sojourn on the last circuit of Havona, and they carefully examine the records of mortal origin and eventful ascent through the worlds of space and the circles of Havona. When they greet the mortals of time, they are already well versed in the careers of these arriving pilgrims and immediately prove to be sympathetic and intriguing companions.

너희가 파라다이스에서 최종자-이전(以前) 상태로 머무는 동안,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 생애의 너희 연관-동료-필사자 또는 세라핌천사-로부터 너희가 일시적으로 분리된다면 파라다이스 동행자가 조언과 동행자신분을 이루기 위해 즉시 배정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홀로 거주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일단 배정되고 나면, 그 동행자는 그가 그의 상승하는 동료들과 재결합하든지 아니면 최종의 무리단에 정식으로 소집된 때까지 이 개인과 함께 남아 있다.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은 상승자가 그 본성이 그의 초우주 유형과는 다른 동행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다리는 순서대로 배치된다. 만일 유란시아 필사자가 오늘 파라다이스에 도착하였다면, 오르본톤에서 기원되었거나 아니면 일곱 번째 주(主) 영의 본성을 가진 기다리는 첫 번째 동료가 거기에서 그에게 배정될 것이다. 따라서 천(全)천사들은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함께 봉사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여러 봉사들이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에 의해 수행 된다: 만일 상승하는 필사자가 홀로 중앙우주에 도착하였다면,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神) 모험여행의 어느 위상에서 실패하였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가 시간의 우주들에게로 귀환되고, 즉시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의 예비자들에 소집될 것이다. 실패한 순례자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다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하여 중앙우주로 돌아올 때까지, 이 계층 중 하나가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며 그와 함께 남아 있도록 배치될 것이다.

만일 상승하는 순례자가 상승하는 세라핌천사, 필사자 생애의 수호천사와 대동하여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神) 모험여행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면, 그녀는 그녀의 필사자 연관-동료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 세라핌천사는 항상 자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봉사로 돌아가는 그들의 긴 기간 동안의 필사자 동료들을 따라가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긴밀하게 연관된 필사자 상승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만일 한 편이 하느님을 달성하는 반면 다른 편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면, 성공한 개별존재는 실망한 그 개인성과 함께 진화적 창조계로 돌아가기로 늘 선택하지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파라다이스 동행자들 예비자들을 호출하게 되고, 자원자들 중 한 명이 실망한 그 순례자와 동행하도록 선택된다. 그 때 한 명의 자원하는 파라다이스 시민이 성공한 필사자와 연관하게 되며, 성공한 자는 실패한 동료가 하보나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중앙 섬에 머물고, 그 동안 그는 일정한 파라다이스 학교들에서 가르치는데 진화적 상승에 대한 모험적인 이야기를 제시한다.

[유버사로부터 온 높은 권한자의 후원을 받았음]

25:8.7 (283.8) During your prefinaliter sojourn on Paradise, if for any reason you should be temporarily separated from your associate of the ascending career — mortal or seraphic — a Paradise Companion would be forthwith assigned for counsel and companionship. When once assigned to an ascendant mortal of solitary residence on Paradise, the companion remains with this person until he either is rejoined by his ascendant associates or is duly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25:8.8 (284.1) Paradise Companions are assigned in order of waiting except that an ascender is never placed in the charge of a companion whose nature is unlike his superuniverse type. If a Urantia mortal were arriving on Paradise today, there would be assigned to him the first waiting companion either of origin in Orvonton or otherwise of the nature of the Seventh Master Spirit. Hence the omniaphim serve not with the ascendant creature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25:8.9 (284.2) Many additional services are performed by the Paradise Companions: If an ascending mortal should reach the central universe alone and, while traversing Havona, should fail in some phase of the Deity adventure, in due course he would be remand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forthwith a call would be made to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mpanions. One of this order would be assigned to follow the defeated pilgrim, to be with him and to comfort and cheer him, and to remain with him until he returned to the central universe to resume the Paradise ascent.

25:8.10 (284.3) If an ascending pilgrim met defeat in the Deity adventure while traversing Havona in the company of an ascending seraphim, the guardian angel of the mortal career, she would elect to accompany her mortal associate. These seraphim always volunteer and are permitted to accompany their long-time mortal comrades back to the service of time and space.

25:8.11 (284.4) But not so with two closely associated mortal ascenders: If one attains God while the other temporarily fails, the successful individual invariably chooses to go back to the evolutionary creations with the disappointed personality, but this is not permitted. Instead, a call is made to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mpanions, and one of the volunteers is selected to accompany the disappointed pilgrim. A volunteer Paradise Citizen then becomes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mortal, who tarries on the central Isle awaiting the Havona return of the defeated comrade and in the meantime teaches in certain Paradise schools, presenting the adventurous story of the evolutionary ascent.

25:8.12 (284.5) [Sponsored by One High in Authority from Uversa.]

제 26 편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

⇨ 025

유랜시아 책

027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6 편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

색션

소개

- 제 1 장. 사명활동 영
- 제 2 장. 막강한 초(超)천사
- 제 3 장. 3차 초(超)천사
- 제 4 장. 2차 초(超)천사
- 제 5 장. 순례자 조력자
- 제 6 장. 최극위 안내자
- 제 7 장. 삼위일체 안내자
- 제 8 장. 아들 발견자
- 제 9 장. 아버지 안내자
- 제 10 장. 조언자들과 충고자
- 제 11 장. 휴식보충자

소개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들이다; 그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 중 가장 낮은 집단—천사 무리—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러한 사명활동 영들은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된다. 조직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 중 어느 주요 부분도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제 1 장. 사명활동 영

천사들은 모든 공간의 진화적이고 상승하는 의지적 창조체들의 사명활동-영 동료들이다; 또한 그들은 그 구체들의 신성한 개인성들 중 비교적 높은 무리에 해당하는 동료들인 동시에 활동하는 동반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천사들은 분명한 개인성들이고 높이 개별존재화 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복귀 지도자들의 사명활동을 깊이 이해할 수

PAPER 26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Ministering Spirits
- 2. The Mighty Supernaphim
- 3. The Tertiary Supernaphim
- 4. The Secondary Supernaphim
- 5. The Pilgrim Helpers
- 6. The Supremacy Guides
- 7. The Trinity Guides
- 8. The Son Finders
- 9. The Father Guides
- 10. The Counselors and Advisers
- 11. The Complements of Rest

INTRODUCTION

26:0.1 (285.1) SUPERNAPHIM are the ministering spirits of Paradise and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highest order of the lowest group of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 the angelic hosts. Such ministering spirits are to be encountered from the Isle of Paradise to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No major part of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 is without their services.

1. THE MINISTERING SPIRITS

26:1.1 (285.2) Angels are the ministering-spirit associates of the evolutionary and ascending will creatures of all space; they are also the colleagues and working associates of the higher hosts of the divine personalities of the spheres. The angels of all orders are distinct personalities and are highly individualized. They all have a large

있는 큰 수용력을 소유한다. 공간의 메신저 무리와 함께, 사명활동 영들은 휴식하고 변화되는 기간을 가지며; 그들은 매우 사교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인간 존재들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연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대우주의 사명활동 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초(超)천사.
2. 2품천사.
3. 3품천사.
4. 전(全)천사.
5. 세라핌천사.
6. 케루빔과 사노빔.
7. 중도(中途) 창조체.

천사 계층의 개별 성원들은 우주 안에서 개인적 지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계층의 천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파라다이스 동행자들이 될 수 있다; 일부는 천상의 기록자들이 된다; 또 다른 이들은 기술 충고자들의 계급으로 승진한다. 일정한 케루빔들은 세라핌천사 지위 그리고 운명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반면, 진화 세라핌천사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차원들을 성취할 수 있다.

사명활동 영들의 일곱 계층들은, 계시되는 바와 같이, 발표하는 것을 위하여 상승하는 창조체들에 대해 가장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집단으로 묶여 분류된다:

1. 중앙우주의 사명활동 영. 초(超)천사의 세 계층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에서 봉사한다. 1차 또는 파라다이스 초(超)천사들은 무한한 영에 의해 창조된다. 하보나에서 봉사하는 2차 그리고 3차 계층들은, 각각 주(主) 영들의 그리고 순환회로들의 영들의 자손이다.

2.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2품천사 3품천사, 그리고 전(全)천사. 반영 영들의 자녀인 2품천사는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한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된 3품천사는 결국에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창조자 아들들의 연락 봉사에 전념한다. 전(全)천사들은 무한한 영과 일곱 최극 집행자들에 의해 협동으로 창조되고, 그들은 후자의 독점적 하인들이다. 이 세 계층들에 대한 논의는 이 글들 안에서 계속되는 주제를 형성한다.

3. 지역우주의 사명활동 영은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보좌관들, 케루빔을 포용한다. 필사자 상승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손들과 최초의 접촉을 갖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탄생되

capacity for appreciation of the ministrations of the reversion directors. Together with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the ministering spirits enjoy seasons of rest and change; they possess very social natures and have an associative capacity far transcending that of human beings.

26:1.2 (285.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grand universe are classified as follows:

26:1.3 (285.4) 1. Supernaphim.

26:1.4 (285.5) 2. Seconaphim.

26:1.5 (285.6) 3. Tertiaphim.

26:1.6 (285.7) 4. Omniaphim.

26:1.7 (285.8) 5. Seraphim.

26:1.8 (285.9) 6. Cherubim and Sanobim.

26:1.9 (285.10) 7. Midway Creatures.

26:1.10 (285.11)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angelic orders are not altogether stationary as to personal status in the universe. Angels of certain orders may become Paradise Companions for a season; some become Celestial Recorders; others ascend to the ranks of the Technical Advisers. Certain of the cherubim may aspire to seraphic status and destiny, while evolutionary seraphim can achieve the spiritual level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26:1.11 (285.12) The seven orders of ministering spirits, as revealed, are grouped for 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functions of greatest importance to ascending creatures:

26:1.12 (285.13) 1.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 three orders of *supernaphim* serve in the Paradise-Havona system. Primary or Paradise *supernaphim* are created by the Infinite Spirit. The secondary and tertiary orders, serving in Havona, are respectively the offspring of the Master Spirits and of the Spirits of the Circuits.

26:1.13 (286.1) 2.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 the *seconaphim*, the *tertiaphim*, and the *omniaphim*. *Seconaphim*, th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variously serve in the seven superuniverses. *Tertiaphim*, of origin in the Infinite Spirit, are eventually dedicated to the liaison service of the Creator Sons and the Ancients of Days. *Omniaphim* are created concertedly by the Infinite Spirit and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are the exclusive servants of the latter. The discussion of these three orders forms the subject of a succeeding narrative in this series.

26:1.14 (286.2) 3.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embrace the *seraphim* and their assistants, the *cherubim*. With these offspring of a Universe Mother Spirit mortal ascenders have

는 중도 창조체들은, 실제적으로 고유한 천사 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종종 사명활동 영들과 함께 기능적으로 집단을 짓는다. 세라핌천사들과 그리고 케루빔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너희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다루는 글들에서 제시되어 있다.

천사 무리의 모든 계층들은 다양한 우주 봉사들에게 헌신되어 있고, 그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높은 계층들을 돌보지만, 시간의 자녀들을 위한 진보적 완전이라는 상승하는 기획의 촉진에 많은 숫자가 채택되는 것은 초(超)천사들과 2품천사들 그리고 세라핌천사들이다. 중앙우주,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를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하기 위하여 무한한 영에 의해 제공되어 온 영 사명활동자들의 온전한 고리를 형성한다.

초(超)천사들은 오직 하나의 활동 위상, 우주 아버지와 가지는 활동 위상에서 “영 극성(極性)” 안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버지의 독점적 순환회로들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단독으로 일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접 사명활동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을 때, 초(超)천사들이 기능할 수 있으려면 쌍으로 자발적인 연관을 이루어야만 한다. 2품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영원한 아들의 순환회로들에게 동조하기 위하여 쌍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라핌천사들은 분리되고 집중된 개인성들로서 홀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연락 쌍으로 극성(極性)을 갖게 되었을 때에만 순환회로화 될 수 있다. 그러한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관될 때, 한 쪽은 다른 쪽에게 보완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보완적 관계들은 과도기적일 수 있다; 그들의 영원한 본성일 필요는 없다.

이들 빛나는 빛의 창조체들은 우주의 1차 순환회로들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직접적으로 유지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식물의 작용을 통하여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만, 천사 무리는 순환회로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묘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순회하는 가르침에 참여한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들을 동화시키는 그들의 기법과 매우 흡사하게 지식을 받고 지혜를 흡수한다.

제 2 장. 막강한 초(超)천사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 머무는 모든 유형의 존재들에게 노련한 사명활동자들이다. 이 높은 천사들은 세 개의 주요 계층; 1차, 2차, 그리고 3차적으로 창조 된다.

1차 초(超)천사들은 공동 창조자의 독점적 자손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시민들로 구성된 일정

initial contact. The *midway creatures*, of nativity on the inhabited worlds, are not really of the angelic orders proper, though often functionally grouped with the ministering spirits. Their story, with an account of the seraphim and cherubim, is presented in those papers dealing with the affairs of your local universe.

26:1.15 (286.3) All orders of the angelic hosts are devoted to the various universe services, and they minister in one way or another to the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but it is the supernaphim, seconaphim, and seraphim who, in large numbers, are employed in the furtherance of the ascending scheme of progressive perfection for the children of time. Functioning in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they form that unbroken chain of spirit ministers whi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finite Spirit for the help and guidance of all who seek to attain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Eternal Son.

26:1.16 (286.4) Supernaphim are limited in “spirit polarity” regarding only one phase of action, that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y can work singly except when directly employing the exclusive circuits of the Father. When they are in power reception on the Father’s direct ministry, supernaphim must voluntarily associate in pairs to be able to function. Seconaphim are likewise limited and in addition must work in pairs in order to synchronize with the circuits of the Eternal Son. Seraphim can work singly as discrete and localized personalities, but they are able to encircuit only when polarized as liaison pairs. When such spirit beings are associated as pairs, the one is spoken of as complementary to the other. Complementary relationships may be transient; they are not necessarily of a permanent nature.

26:1.17 (286.5) These brilliant creatures of light are sustained directly by the intake of the spiritual energy of the primary circuits of the universe. Urantia mortals must obtain light-energy through the vegetative incarnation, but the angelic hosts are encircuited; they “have food that you know not.” They also partake of the circulating teachings of the marvelous Trinity Teacher Sons; they have a reception of knowledge and an intake of wisdom much resembling their technique of assimilating the life energies.

2. THE MIGHTY SUPERNAPHIM

26:2.1 (286.6) The supernaphim are the skilled ministers to all types of beings who sojourn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These high angels are created in three major order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26:2.2 (287.1) *Primary supernaphim* are the exclusive offspring of the Conjoint Creator. They divide their

한 집단들과 계속-증가하는 상승하는 순례자 무리 단에게 동등하게 사명활동한다. 영원 섬의 이 천사들은 파라다이스 거주자들로 구성된 두 집단들에 대한 기본 훈련을 더욱 진행시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은 독특한 두 계층의 우주 창조체들—하나는 신성하고 완전한 의지적 창조체 중 가장 높은 유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들의 우주 전체에서 의지적 창조체 중 가장 낮은 유형의 완전한 진화—에 대한 상호적 납득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1차 초(超)천사들의 업무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별도로 고려될 것이다.

2차 초(超)천사들은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관련사들에 대한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중앙 창조의 세계 순환회로들에서 긴 기간 동안 머무는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수많은 계층들에 대한 교육적 훈련에 똑같이 관여하여 사명활동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봉사의 위상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높은 천사들에는 일곱 유형들이 있는데, 각각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에서 기원되고 본질적으로 거기에 따른다. 집단적으로 볼 때, 일곱 주(主) 영들이 독특한 존재들 그리고 실존개체들의 많은 다른 집단들을 창조하고, 각 계층의 개별성원들은 본성적으로 비교적 균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이 일곱 영들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계층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칠중이다; 각 주(主)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본성을 띠고 거기에 따라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 그러한 것이 2차 초(超)천사의 기원이고, 창조된 일곱 유형들 전체의 천사들은 그들 전체 계층에게 열린 모든 기능 통로들 속에서 활약하는데, 주로 중앙 그리고 신성한 우주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서이다.

하보나의 일곱 행성 순환회로들 각각은 그 일곱 순환회로 영 중 하나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있는데, 그들 자신은 일곱 주(主) 영의 집단적—따라서 균일한—창조자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보나의 이 일곱 보완 영들은 기원적인 원형을 우주의 일부는 아니었다. 그들은 기원적(영원한) 창조가 있는 뒤에 그러나 그랜한다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기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목적에 대해 주(主) 영들의 창조적 응답으로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우주의 조직화 이후에 기능적으로 발견되었다. 무한한 영과 그의 모든 창조 연관-동료들은, 우주 조화-협동자로서, 체험적 신(神)의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의 실시간적 발전에 대해 적절한 창조적 응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풍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3차 초(超)천사들은 이들 순환회로들의 일곱 영들 안에서 기원된다. 개별 하보나 순환회로들에

ministry about equally between certain groups of the Paradise Citizens and the ever-enlarging corps of ascendant pilgrims. These angels of the eternal Isle are highly efficacious in furthering the essential training of both groups of Paradise dwellers. They contribute much that is helpful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se two unique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 the one being the highest type of divine and perfect will creature, and the other, the perfected evolution of the lowest type of will creatur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26:2.3 (287.2) The work of the primary supernaphim is so unique and distinctive that it will be separately considered in the succeeding narrative.

26:2.4 (287.3) *Secondary supernaphim* are the directors of the affairs of ascending beings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They are equally concerned in ministering to the educational training of numerous orders of Paradise Citizens who sojourn for long periods on the world circuits of the central creation, but we may not discuss this phase of their service.

26:2.5 (287.4) There are seven types of these high angels, each of origin in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in nature patterned accordingly. Collectively, the Seven Master Spirits create many different groups of unique beings and entities, and the individual members of each order are comparatively uniform in nature. But when these same Seven Spirits create individually, the resulting orders are always sevenfold in nature; the children of each Master Spirit partake of the nature of their creator and are accordingly diverse from the others. Such is the origin of the secondary supernaphim, and the angels of all seven created types function in all channels of activity open to their entire order, chiefly on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26:2.6 (287.5) Each of the seven planetary circuits of Havona is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one of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themselves the collective — hence uniform — cre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ough partaking of the natur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se seven subsidiary Spirits of Havona were not a part of the original pattern universe. They were in function after the original (eternal) creation but long before the times of Grandfanda. They undoubtedly appeared as a creative response of the Master Spirits to the emerging purpose of the Supreme Being, and they were discovered in function upon the organization of the grand universe. The Infinite Spirit and all his creative associates, as universal co-ordinators, seem abundantly endowed with the ability to make suitable creative responses to the simultaneous developments in the experiential Deities and in the evolving universes.

26:2.7 (287.6) *Tertiary supernaphim* take origin in thes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Each one of

서, 그들 각각은 중앙우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3차 계층에 해당하는 충분한 숫자의 높은 초(超)천사의 사명활동자들을 창조하도록 무한한 영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 순환회로 영들이 시간의 순례자들의 하보나 도착 전에 이 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비교적 소수를 생산하는 동안, 일곱 주(主) 영들은 그랜한다의 도착 시까지 2차 초(超)천사의 창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계층들 중 더 오래되었으므로, 3차 초(超)천사가 먼저 배려를 받아들일 것이다.

제 3 장. 3차 초(超)천사

일곱 주(主) 영들의 이들 봉사원은 하보나의 다양한 순환회로들의 천사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은 시간의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영원의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에게 해당한다. 완전한 중앙우주에 속한 10억 개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모든 계층들에 속한 너희 초(超)천사 연관-동료들이 너희에게 완전히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볼 때, 그곳에서 너희 모두는 형제우애관계를 가질 것이고 상호 접촉 그리고 동정심을 갖는 납득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강하는 순례자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절묘하게 형제우애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첫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를 통하여 하보나에 들어가고 일곱 번째를 향해 밖으로 진행하는, 안쪽으로부터 밖을 향하는 이 순환회로들을 지나가는 파라다이스 시민들이다.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반대방향으로 하보나를 통과하는데,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의 길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진행한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그리고 이 순환회로에서 저 순환회로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진행에는 어떤 시간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데,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어떤 고정된 시간제한도 독단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적당하게 발전된 개별존재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우주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데, 어떤 순례자도 진보적 영성화의 일곱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통과 전체를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의 순례자들의 봉사에 주로 지정되는 3차 초(超)천사 무리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1. 조화 감독자. 심지어는 완전한 하보나에서도, 다음 단계의 파라다이스 성취를 위하여 시간의 필사자들을 준비시키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체계를 유지하고 조화-협동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화-협동하는 영향들이 요구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것이 조화감독자들의 실제적 임무이다—모든 것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순환회로에서 기원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보나에 두루 봉사하고, 그 순환회로들에서의 그들의 현존은 아무 것도 잘못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계층들—심지어는 복잡적 차원

them, on the separate Havona circles, is empowered by the Infinite Spirit to create a sufficient number of high superaphic ministers of the tertiary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central universe. While the Circuit Spirits produced comparatively few of these angelic ministers prior to the arrival in Havona of the pilgrims of time, the Seven Master Spirits did not even begin the creation of secondary supernaphim until the landing of Grandfanda. As the older of the two orders, the tertiary supernaphim will therefore receive first consideration.

3. THE TERTIARY SUPERNAPHIM

26:3.1 (288.1) These servant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angelic specialists of the various circuits of Havona, and their ministry extends to both the ascending pilgrims of time and the descending pilgrims of eternity. On the billion study worlds of the perfect central creation, your superaphic associates of all orders will be fully visible to you. There you will all be, in the highest sense, fraternal and understanding beings of mutual contact and sympathy. You will also fully recognize and exquisitely fraternize with the descending pilgrims, the Paradise Citizens, who traverse these circuits from within outward, entering Havona through the pilot world of the first circuit and proceeding outward to the seventh.

26:3.2 (288.2)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pass through Havona in the opposite direction, entering by way of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uit and proceeding inward. There is no time limit set on the progress of the ascending creatures from world to world and from circuit to circuit, just as no fixed span of time is arbitrarily assigned to residence on the morontia worlds. But, whereas adequately developed individuals may be exempted from sojourn on one or more of the local universe training worlds, no pilgrim may avoid passing through all seven of the Havona circuits of progressive spiritualization.

26:3.3 (288.3) That corps of tertiary supernaphim which is chief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pilgrims of time is classified as follows:

26:3.4 (288.4) 1. *The Harmony Supervisors.* It must be apparent that some sort of co-ordinating influence would be required, even in perfect Havona, to maintain system and to insure harmony in all the work of preparing the pilgrims of time for their subsequent Paradise achievements. Such is the real mission of the harmony supervisors — to keep everything moving along smoothly and expeditiously. Originating on the first circuit, they serve throughout Havona, and their presence on the circuits means that nothing can

들—의 개인성을 포함하는 활동의 다양성을 조화-협동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이 초(超)천사들로 하여금 요구되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시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의 상호 납득에 막대하게 기여한다.

2. 기록자 우두머리. 이 천사들은 두 번째 순환회로에서 창조되지만 중앙우주 어디에서나 활동한다. 그들은 3중으로 기록하는데, 하보나의 문자적 서류철을 위해, 그들의 계층의 영적 서류철을 위해,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들을 위해 기록한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1차 계층의 초(超)천사들의 지식의 보호관리자들인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들로 수입하는 참된-지식의 활동행위들을 자동적으로 이행한다.

3. 방송자. 제3 순환회로 영의 자녀들은 비록 그들의 공식적 주둔지가 최 외곽 순환계 안에 있는 70번 행성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하보나에 두루 기능한다. 이 주(主)기술인들은 중앙 창조의 방송 접수자들 그리고 송출인 들이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신(神) 현상들에 대한 공간 보고서들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기초 순환회로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

4. 메신저들은 4번 순환회로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개인적 전송을 요구하는 모든 소식들을 지참하는 자들로서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 천상의 개인성들과 파라다이스 순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의 상승하는 혼들을 봉사한다.

5. 정보조화-협동자. 다섯 번째 순환회로 영의 자녀들인 3차 이 초(超)천사들은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사이에 형제우애의 관계적-연합을 항상 증진시키는 현명하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거주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명활동하는데, 우주들의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해 그들에게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특별히 상승자들에게 그렇게 한다. 방송자들과 반영자들과의 개인적 접촉 덕분에, 하보나의 이 “살아있는 신문들”은 중앙우주의 광대한 새 순환회로들을 지나가는 모든 정보에 순식간에 정통하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 도표 방식에 의해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장 빠른 전신 기술로 기록하기에 천 년이 걸릴 만큼 많은 정보를 유란시아 시간으로 한 시간 안에 자동으로 흡수시킬 수 있다.

6. 운송개인성. 제6번 순환회로에서 기원되는 이 존재들은 대개 최 외곽 순환회로 안에 있는 40번 행성으로부터 활동한다. 신(神) 모험여행에서 과도기적으로 실패한 실망된 후보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봉사에 들어오고 나가야만 하는, 그리고 공간 횡단자들이 아닌 모든 존재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하고 서 있다.

possibly go amiss. A great ability to co-ordinate a diversity of activities involving personalities of differing orders — even multiple levels — enables these supernaphim to give assistance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They contribute enormously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pilgrims of time and the pilgrims of eternity.

26:3.5 (288.5) 2. *The Chief Recorders.* These angels are created on the second circuit but operate everywhere in the central universe. They record in triplicate, executing records for the literal files of Havona, for the spiritual files of their order, and for the formal records of Paradise. In addition they automatically transmit the transactions of true-knowledge import to the living libraries of Paradis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of the primary order of supernaphim.

26:3.6 (288.6) 3. *The Broadcasters.* The children of the third Circuit Spirit function throughout Havona, although their official station is located on planet number seventy in the outermost circle. These master technicians are the broadcast receivers and senders of the central creation and the directors of the space reports of all Deity phenomena on Paradise. They can operate all of the basic circuits of space.

26:3.7 (288.7) 4. *The Messengers* take origin on circuit number four. They range the Paradise-Havona system as bearers of all messages requiring personal transmission. They serve their fellows, the celestial personalities, the Paradise pilgrims, and even the ascendant souls of time.

26:3.8 (289.1) 5. *The Intelligence Co-ordinators.* These tertiary supernaphim, the children of the fifth Circuit Spirit, are always the wise and sympathetic promoters of fraternal association between the ascending and the descending pilgrims. They minister to all the inhabitants of Havona, and especially to the ascenders, by keeping them currently informed regarding the affai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By virtue of personal contacts with the broadcasters and the reflectors, these “living newspapers” of Havona are instantly conversant with all information passing over the vast news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secure intelligence by the Havona graph method, which enables them automatically to assimilate as much information in one hour of Urantia time as would require a thousand years for your most rapid telegraphic technique to record.

26:3.9 (289.2) 6. *The Transport Personalities.* These beings, of origin on circuit number six, usually operate from planet number forty in the outermost circuit. It is they who take away the disappointed candidates who transiently fail in the Deity adventure. They stand ready to serve all who must come and go in the service of Havona, and who are not space traversers.

7. 예비무리단. 상승하는 존재들, 파라다이스 순례자들, 그리고 하보나에 머무는 다른 계층의 존재들과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동요들 때문에 일곱 번째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 이 초(超)천사 예비자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특별한 설계 없이 창조되고, 3차 계층의 초(超)천사 연관-동료들이 하는, 힘이 덜 드는 위상의 어떤 임무에 봉사하기에 적합하다.

제 4 장. 2차 초(超)천사

2차 초(超)천사들은 중앙우주의 일곱 행성 순환회로들에 대한 사명활동자들이다. 일부는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고, 전체 계층의 절반은 영원의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에 배정된다. 이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통과하는 그들의 순례여행에 있어서,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으로부터 온 자원자들에 의해 돌보아지는데, 이것은 최초의 최종자 집단의 완성 이후로 계속되어 조치이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것에 따라, 2차 초(超)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집단으로 활동한다:

1. 순례자 조력자.
2. 최극위 안내자.
3. 삼위일체 안내자.
4. 아들 발견자.
5. 아버지 안내자.
6. 조언자와 충고자.
7. 휴식 보충자.

활동하는 이 집단들은 모든 일곱개의 창조 유형 각각의 천사들을 포함하며, 공간의 어떤 순례자는 그 순례자가 탄생된 그 초우주를 지배하는 주(主) 영 안에서 기원된 2차 초(超)천사에 의해 항상 훈련된다. 너희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보나를 달성할 때, 너희는 창조된 본성이 오르본톤의 주(主) 영으로부터 도출된—너희 자신의 진화된 본성들과 비슷한—초(超)천사들에 의해 분명하게 선도(先導)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훈련자들은 너희 자신의 초우주의 주(主) 영으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파라다이스 완성을 달성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수고에 있어서 너희를 납득하고 위로하며 도와주도록 특별하게 분별화되어 있다.

시간의 순례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본부로부터 활동하는, 2품천사들의 1차 계층의 운송개인성들에 의해 하보나의 암흑중력체들을 지나 외부행성 순환회로를 향해 운송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도록 허락을 받은, 행성 그리고 지역우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세라핌

26:3.10 (289.3) 7. *The Reserve Corps.* The fluctuations in the work with the ascendant beings, the Paradise pilgrims, and other orders of beings sojourning in Havona, make it necessary to maintain these reserves of supernaphim on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le, where they take origin. They are created without special design and are competent to take up service in the less exacting phases of any of the duties of their superaphic associates of the tertiary order.

4. THE SECONDARY SUPERNAPHIM

26:4.1 (289.4) The secondary supernaphim are ministers to the seven planetary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Part are devoted to the service of the pilgrims of time, and one half of the entire order is assigned to the training of the Paradise pilgrims of eternity. These Paradise Citizens, in their pilgrimage through the Havona circuits, are also attended by volunteers from the Mortal Finality Corps, an arrangement that has prevail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first finaliter group.

26:4.2 (289.5) According to their periodic assignment to the ministry of the ascending pilgrims, secondary supernaphim work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 26:4.3 (289.6) 1. Pilgrim Helpers.
- 26:4.4 (289.7) 2. Supremacy Guides.
- 26:4.5 (289.8) 3. Trinity Guides.
- 26:4.6 (289.9) 4. Son Finders.
- 26:4.7 (289.10) 5. Father Guides.
- 26:4.8 (289.11) 6. Counselors and Advisers.
- 26:4.9 (289.12) 7. Complements of Rest.

26:4.10 (289.13) Each of these working groups contains angels of all seven created types, and a pilgrim of space is always tutored by secondary supernaphim of origin in the Master Spirit who presides over that pilgrim's superuniverse of nativity. When you mortals of Urantia attain Havona, you will certainly be piloted by supernaphim whose created natures — like your own evolved natures — are derived from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And since your tutors spring from the Master Spirit of your own superuniverse, they are especially qualified to understand, comfort, and assist you in all your efforts to attain Paradise perfection.

26:4.11 (290.1) The pilgrims of time are transported past the dark gravity bodies of Havona to the outer planetary circuit by the transport personalities of the primary order of seconaphim, operating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 majority, but not all, of the seraphim of planetary

천사들은,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앞서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갈라질 것이며, 그들은 숭고한 임무를 위하여 당장에 오랜 기간의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라핌천사로서 실존의 완전과 봉사의 최극위를 성취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시간의 순례자들을 재(再)가입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최종의 무리단에 관한 계시되지 않은 봉사에 대한 임무배정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주 아버지를 달성해 온 그 필사자들의 경로를 언제까지나 따라가는 그들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다.

순례자는 하보나의 접수 행성, 일곱 번째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오직 한 가지 완전의 자질, 목적의 완전을 가지고 도착한다. 우주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은 공간의 세계들의 유한한 자녀들에 대한 몹시 놀라운 초청-명령이다. 그 명령의 선포는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그 중대한 명령의 성취 그리고 실현을 이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천상의 존재들의 협조적 노력 안에서 모든 창조가 활기를 띄게 해 왔다.

생존을 위한 우주 기획에서의 모든 조력자 무리의 사명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봉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침내 하보나 접수 세계에 맡겨질 때, 너희는 오직 한 종류의 완전—목적의 완전—만을 가지고 도착한다. 너희의 목적은 이미 철저하게 증명되었다; 너희 신앙은 시험을 거쳐왔다. 너희는 실패에 대한 내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아버지를 식별하는 데 실패한 것조차도, 하보나의 완전한 구체들에 이르기 위하여 모두가 거쳐야 하는 체험을 통과한, 상승 필사자의 신앙을 흔들거나 그의 신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는, 너희의 성실성은 숭고하게 된다. 목적의 완전과 소망의 신성인, 신앙의 굳건함과 함께, 영원의 안정된 거주지로 너희가 입장하는 것을 보장해 놓았다; 시간의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너희의 해방은 이제 충족되었으며 그리고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시간의 체험적 신(新)시대 안에서 그리고 공간의 세계 학교들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오며 만나려고 하였던 하보나의 문제들과 파라다이스의 광대함에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오고야 만 것이다.

신앙은 상승하는 순례자에게 영원의 관문까지 이르는 시간의 자녀들을 입장시키는 목적의 완전을 얻게 해 주었다. 이제는 순례자 조력자들이, 개인성의 파라다이스 완전에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한 납득에서의 완전함과 이해의 기법을 발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해하는 능력은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필사자의 여권(旅券)이다. 기꺼이 믿고자함은 하보나에 이르는 열쇠이다. 아들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협동이 진화적 생존에 대한 값이다.

and local universe service who have been accredited for the Paradise ascent will part with their mortal associates before the long flight to Havona and will at once begin a long and intense training for supernal assignment, expecting to achieve, as seraphim, perfection of existence and supremacy of service. And this they do, hoping to rejoin the pilgrims of time, to be reckoned among those who forever follow the course of such mortals as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and have received assignment to the undisclosed service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26:4.12 (290.2) The pilgrim lands on the receiving planet of Havona, the pilot world of the seventh circuit, with only one endowment of perfection, perfection of purpose. The Universal Father has decreed: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That is the astounding invitation-command broadcast to the finite children of the worlds of space. The promulgation of that injunction has set all creation astir in the co-operative effort of the celestial beings to assist in bringing about the fulfillment and realization of that tremendous command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26:4.13 (290.3) When, through and by the ministry of all the helper hosts of the universal scheme of survival, you are finally deposited on the receiving world of Havona, you arrive with only one sort of perfection — *perfection of purpose*. Your purpose has been thoroughly proved; your faith has been tested. You are known to be disappointment proof. Not even the failure to discern the Universal Father can shake the faith or seriously disturb the trust of an ascendant mortal who has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all must traverse in order to attain the perfect spheres of Havona. By the time you reach Havona, your sincerity has become sublime. Perfection of purpose and divinity of desire, with steadfastness of faith, have secured your entrance to the settled abodes of eternity; your deliverance from the uncertainties of time is full and complete; and now must you come face to face with the problems of Havona and the immensities of Paradise, to meet which you have so long been in training in the experiential epochs of time on the world schools of space.

26:4.14 (290.4) Faith has won for the ascendant pilgrim a perfection of purpose which admits the children of time to the portals of eternity. Now must the pilgrim helpers begin the work of developing that perfection of understanding and that technique of comprehension which are so indispensable to Paradise perfection of personality.

26:4.15 (290.5) *Ability to comprehend is the mortal passport to Paradise.* Willingness to believe is the key to Havona. The acceptance of sonship, co-operat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is the price of evolutionary survival.

제 5 장. 순례자 조력자

2차 초(超)천사의 일곱 집단들 중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순례자 조력자, 재빠르게 납득하고 폭넓은 동정심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들은 중앙우주의 안정된 세계들과 그리고 정착된 섭리로 오는 많은-여행을 거친 공간의 상승자들을 환영해주는 존재들이다. 이들 높은 사명활동자들은 외부 순환회로의 선도 세계에 그랜한다가 착륙함과 동시에, 이들 중 첫 순례자가 동조되어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 도착하면서, 영원의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시작한다. 아득히 먼 그 시절에, 파라다이스에서 온 순례자들과 시간의 순례자들이 4번 순환회로의 접수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이 순례자 조력자들은, 하보나 세계들 중 일곱 번째 순환계에서 기능하는데, 세 개의 주요부서,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최극으로 납득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아들 동반자 관계에 대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영에 대한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 예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그들의 일을 행위로 이끈다. 이 교육 위상들 각각은 일곱 부서들로, 각 부서는 열 두 분과들로, 각 분과는 70개의 부속 집단들로 나뉘며; 이 70개 교육 부속 집단들 각각은 1,000개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더 자세한 교육은 그 후의 순환계들에서 제공되지만, 파라다이스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윤곽은 순례자 조력자들이 가르친다.

이 때 그것은 공간의 신앙-시험을 받은 그리고 많은-여행을 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초보적이자 기본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하보나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이들 상승하는 시간의 자녀들은 불확실성 위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실망 위에서 살찌우고, 외견상 명백한 실패 위에서 열중하고, 어려움의 현존 속에서 활력이 북돋고, 광대함과 마주하면서 불굴의 용기를 내보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정복당하지 않는 신앙을 발휘하는 것을 배워 왔다.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순례자들의 투쟁 구호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느님과 의 연락 안에서는 어떤 것도—절대로 그 어떤 것도—불가능은 없다.”

하보나 순환계들 각각의 시간의 순례자들에게서의 분명한 필요한 요구들이 있다; 모든 순례자는 그 특별한 유형의 상승하는 창조체에 도움을 주는 데에 본성에서 적합한 초(超)천사들의 보호 아래에 계속 있는 동안에는, 숙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은 중앙우주에 도착한 모든 상승자들에게 공정하게 확립적인 것이다. 이 성취 과정은 양적이고 질적이며 체험적—지능적, 영적 그리고 최극—이다.

시간은 하보나 순환계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제한된 방법으로 진보의 가능성들

5. THE PILGRIM HELPERS

26:5.1 (291.1) The first of the seven groups of secondary supernaphim to be encountered are the pilgrim helpers, those beings of quick understanding and broad sympathy who welcome the much-traveled ascenders of space to the stabilized worlds and settled economy of the central universe. Simultaneously these high ministers begin their work for the Paradise pilgrims of eternity, the first of whom arrived on the pilot world of the inner Havona circuit concomitantly with the landing of Grandfanda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circuit. Back in those far-distant days the pilgrims from Paradise and the pilgrims of time first met on the receiving world of circuit number four.

26:5.2 (291.2) These pilgrim helpers, functioning on the seventh circle of Havona worlds, conduct their work for the ascending mortals in three major divisions: first, the supreme understanding of the Paradise Trinity; second, the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Father-Son partnership; and third, the intellectual recognition of the Infinite Spirit. Each of these phases of instruction is divided into seven branches of twelve minor divisions of seventy subsidiary groups; and each of these seventy subsidiary groupings of instruction is presented in one thousand classifications. More detailed instruction is provided on subsequent circles, but an outline of every Paradise requirement is taught by the pilgrim helpers.

26:5.3 (291.3) That, then, is the primary or elementary course which confronts the faith-tested and much-traveled pilgrims of space. But long before reaching Havona, these ascendant children of time have learned to feast upon uncertainty, to fatten upon disappointment, to enthuse over apparent defeat, to invigorate in the presence of difficulties, to exhibit indomitable courage in the face of immensity, and to exercise unconquerable faith when confronted with the challenge of the inexplicable. Long since, the battle cry of these pilgrims became: “In liaison with God, nothing — absolutely nothing — is impossible.”

26:5.4 (291.4) There is a definite requirement of the pilgrims of time on each of the Havona circles; and while every pilgrim continues under the tutelage of supernaphim by nature adapted to helping that particular type of ascendant creature, the course that must be mastered is fairly uniform for all ascenders who reach the central universe. This course of achievement i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experiential — intellectual, spiritual, and supreme.

26:5.5 (291.5) Time is of little consequence on the Havona circles. In a limited manner it enters into the possibilities of advancement, but achievement

안으로 들어가지만, 성취는 최종적이고 최극 시험이다. 너희가 안쪽을 향하여 다음 순환계로 지나갈 자격이 있다고 너희 초(超)천사 연관-동료가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일곱 번째 순환회로 영의 열 두 보조자들 앞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가 기원된 그 초우주에 의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난 그 체계에 의해 결정된 그 순환계의 시험을 지나가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순환계의 신성 달성은 선도(先導) 세계에서 일어나고 상승하는 순례자의 초우주의 주(主) 영의 영적 인식 그리고 실현 속에 있다.

외부 하보나 순환계의 일이 완결되어지고 제시된 과정이 숙달되면, 그 순례자 조력자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다음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로 데리고 가서, 최극위 안내자들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긴다. 순례자 조력자들은 그 전환을 유쾌하면서 동시에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하여 항상 일정 기간 동안 머문다.

제 6 장. 최극위 안내자

공간의 상승자들은 일곱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 순환계로 전환될 때 “영적 졸업생들”로 명명되며 최극위 안내자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들어간다. 이 안내자들은 졸업생 안내자들—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봉사원 연관-동료들과 함께 상승 그리고 하강 순례자들 둘 모두를 하보나의 모든 순환회로들에서 사명활동 일을 한다. 최극위 안내자들은 중앙우주의 여섯 번째 순환계에서만 기능한다.

상승자들이 최극 신성의 새로운 실현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순환계에서이다. 진화적 우주들 안에서의 그들의 긴 생애를 통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은 시간-공간 창조계에 대한 전능의 전반적-통제의 실체를 점점 더 깨달아 가는 체험을 해오고 있다. 이곳, 하보나 순환회로에서, 그들은 시간-공간 합일—최극자 하느님의 영적 실체—의 중앙우주 근원을 만나는 일에 더욱 접근한다.

나는 이 순환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약간 곤란하다. 최극위의 어떤 개인성구현된 현존도 상승자들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곱 번째 주(主) 영과의 새로운 관계들은 최극존재의 이 비(非)접촉성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기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이 없이, 상승하는 각 창조체는 최극존재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을 가정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변환하는 성장, 어떤 새로운 의식의 집대성활동, 어떤 새로운 목적의 영성화, 신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활동행위들을 목격해 온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최극자 하느님이 그의 체험적 자녀들에게 그들의 체험적 수용력의 바로 그 한계까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그리고 실존적인 신(神)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극위

is the final and supreme test. The very moment your superaphic associate deems you to be competent to pass inward to the next circle, you will be taken before the twelve adjutants of the seventh Circuit Spirit. Here you will be required to pass the tests of the circle determined by the superuniverse of your origin and by the system of your nativity. The divinity attainment of this circle takes place on the pilot world and consists in the spiritual recog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Master Spirit of the ascending pilgrim's superuniverse.

26:5.6 (291.6) When the work of the outer Havona circle is finished and the course presented is mastered, the pilgrim helpers take their subjects to the pilot world of the next circle and commit them to the care of the supremacy guides. The pilgrim helpers always tarry for a season to assist in making the transfer both pleasant and profitable.

6. THE SUPREMACY GUIDES

26:6.1 (292.1) Ascenders of space are designated “spiritual graduates” when translated from the seventh to the sixth circle and are placed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supremacy guides. These guide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Graduate Guides — belonging to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who, with their servital associates, minister on all circuits of Havona to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 pilgrims. The supremacy guides function only on the sixth circle of the central universe.

26:6.2 (292.2) It is in this circle that the ascenders achieve a new realization of Supreme Divinity. Through their long careers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 pilgrims of time have been experiencing a growing awareness of the reality of an almighty overcontrol of the time-space creations. Here, on this Havona circuit, they come near to encountering the central universe source of time-space unity — the spiritual reality of God the Supreme.

26:6.3 (292.3) I am somewhat at a loss to explain what takes place on this circle. No personalized presence of Supremacy is perceptible to the ascenders. In certain respects, new relationships with the Seventh Master Spirit compensate this noncontactability of the Supreme Being. But regardless of our inability to grasp the technique, each ascending creature seems to undergo a transforming growth, a new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 new spiritualization of purpose, a new sensitivity for divinity, which can hardly be satisfactorily explained without assuming the unrevealed activity of the Supreme Being. To those of us who have observed these mysterious transactions, it appears as if God the Supreme were affectionately bestowing upon his experiential

의 삼위일체의 신성 차원을 관통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 그들이 그토록 필요하게 될, 지적 파악의, 영적 통찰력의, 그리고 개인성 뻔침에서의 저를 향상을 애정을 다하여 증여해 온 것처럼 보인다.

자기 학생들이 진보할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최극위 안내자들이 판단할 때, 그들은 70인 위원회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위원회는 6번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검열자로 봉사하는 혼합된 집단이다. 최극존재에 대한 그리고 최극위의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따라 이 위원회가 만족하게 된 후에, 그 순례자들은 다섯 번째 순환회로로 이동하도록 인가를 받는다.

제 7 장. 삼위일체 안내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보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하보나 훈련의 다섯 번째 순환계에 속한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자들이다. 영적 졸업생들은 여기에서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후보자들”이라는 칭함을 받는데 왜냐하면 무한한 영에 대한 개인성 인식을 성취하고자 시도하기 위해 준비함에 있어서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 순례자들이 증진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도 아래 이 순환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순환계의 세계들에서 그들이 성취하도록 장치된 그 높은 목표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에 필요하게 될 여전히-더욱-고생스러운 그리고 훨씬-더-힘든 영적 노력의 본성을 그들이 식별하기 시작할 때 참된 연구와 실제적인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서 발견한다.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가장 신실하고 효과적인이다; 각 순례자는, 이 계층에 속하는 2차 초(超)천사들 중 하나의 전심전력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애정을 누린다. 시간의 순례자도, 다가오는 신(神) 모험여행의 본성과 기법에 관하여 그 상승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의 무리와 이 안내자들의 도움 그리고 보조가 없다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접근 가능한 개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순환회로에서의 훈련 과정이 완료된 후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그들의 학생들을 그것의 선도(先導) 세계로 데리고 가며,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후보자들의 시험관들 그리고 보증인들로서 기능하는 많은 삼위일체(三元一體) 위원회들 중 하나 앞에 그들을 출석시킨다. 이 위원회들은 최중자 중 한 명, 1차 초(超)천사의 계층의 행위의 지도자들 중 한 명, 그리고 공간의 단독 메신저 또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화 아들 한 명으로 구성된다.

상승하는 혼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실제적으로 출발할 때, 오직 운송 삼총사 즉: 초(超)천사 순환계 연관-동료,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의 향상-현존하는 봉사원 동료만이 그와 대동한다. 하

children, up to the very limits of their experiential capacities, those enhancements of intellectual grasp, of spiritual insight, and of personality outreach which they will so need, in all their efforts at penetrating the divinity level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o achieve the eternal and existential Deities of Paradise.

26:6.4 (292.4) When the supremacy guides deem their pupils ripe for advancement, they bring them before the commission of seventy, a mixed group serving as examiners on the pilot world of circuit number six. After satisfying this commission as to their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Being and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he pilgrims are certified for translation to the fifth circuit.

7. THE TRINITY GUIDES

26:7.1 (292.5) Trinity guides are the tireless ministers of the fifth circle of the Havona training of the advancing pilgrims of time and space. The spiritual graduates are here designated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since it is on this circle, under the direction of the Trinity guides, that the pilgrims receive advanced instruction concerning the divine Trinity in preparation for the attempt to achieve the personality recognition of the Infinite Spirit. And here the ascending pilgrims discover what true study and real mental effort mean as they begin to discern the nature of the still-more-taxing and far-more-arduous spiritual exertion that will be requir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high goal set for their achievement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26:7.2 (292.6) Most faithful and efficient are the Trinity guides; and each pilgrim receives the undivided attention, and enjoys the whole affection, of a secondary supernaphim belonging to this order. Never would a pilgrim of time find the first approachable person of the Paradise Trinity were it not for the help and assistance of these guides and the host of other spiritual beings engaged in instructing the ascenders respecting the nature and technique of the forthcoming Deity adventure.

26:7.3 (293.1)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of training on this circuit the Trinity guides take their pupils to its pilot world and present them before one of the many triune commissions functioning as examiners and certifiers of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These commissions consist of one fellow of the finaliters, one of the directors of conduct of the order of primary supernaphim, and either a Solitary Messenger of space or a Trinitized Son of Paradise.

26:7.4 (293.2) When an ascendant soul actually starts for Paradise, he is accompanied only by the transit trio: the superaphic circle associate, the Graduate Guide, and the ever-present servital

보나 순환회로들로부터 파라다이스를 향한 이 짧은 여행들은 시험적 여행이다; 상승자들은 아직 파라다이스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달성과 하보나 순환회로들의 최종적 통과 다음에 있는 일시적 시간 휴식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파라다이스에서의 거주 지위를 얻지 못한다. 신성한 휴식 이후에야 그들은 “신성의 본질”과 “최극위의 영”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삼위일체의 현존 안에서 그리고 영원의 순환계 안에서 실제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통과 삼층사에 속하는 상승자의 동행자들은 그가 삼위일체의 영적 휘광의 지리적 현존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성 인식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식별하고,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어려운 임무 안에 있는 순례자에게 모든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상승하는 순례자는 삼위일체의 지리적 또는 위치적 현존을 식별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神)들의, 특별히 셋째 개인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현존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우주 아버지에게 대해 최소한의 영적 이해를 갖는 것은 여전히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무한한 영에 대한 추구가 실패하는 일은 드물며, 피 교육자가 신(神) 모험여행의 이 위상에서 성공을 이룩하였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하보나의 네 번째 순환계에서 아들 발견자들의 사명활동으로 그들을 옮길 준비를 한다.

제 8 장. 아들 발견자

네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는 때로 “아들들의 순환회로”라고 불린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영원한 아들과의 납득하는 접촉을 이루기 위하여 이 순환회로의 세계들로부터 파라다이스로 가는 반면, 하강하는 순례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과 임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 순환회로에 속한 세계들에서 성취한다.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에 대해 상호적 사명활동의 특별한 봉사 학교를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의 예비무리단이 유지하는 이 순환회로 안에는 일곱 세계들이 있다; 시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진실 되게 처음으로 납득하게 되는 일이 미가엘 아들들의 이 세계들에서 일어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순환회로에서의 체험은 하보나에 머무는 전체 기간 중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다.

아들 발견자들은 네 번째 순환회로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초(超)천사의 사명활동자들이다. 영원한 아들의 삼위일체 관계들의 실현을 위해 그들의 후보자들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일 이외

associate of the latter. These excursions from the Havona circles to Paradise are trial trips; the ascenders are not yet of Paradise status. They do not achieve residential status on Paradise until they have passed through the terminal rest of time subsequent to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final clearance of the Havona circuits. Not until after the divine rest do they partake of the “essence of divinity” and the “spirit of supremacy” and thus really begin to function in the circle of eternity and in the presence of the Trinity.

26:7.5 (293.3) The ascender's companions of the transit trio are not required to enable him to locate the geographic presence of the spiritual luminosity of the Trinity, rather to afford all possible assistance to a pilgrim in his difficult task of recognizing, discerning, and comprehending the Infinite Spirit sufficiently to constitute personality recognition. Any ascendant pilgrim on Paradise can discern the geographic or locational presence of the Trinity, the great majority are able to contact the intellectual reality of the Deities, especially the Third Person, but not all can recognize or even partially comprehend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Father and the Son. Still more difficult is even the minimum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Universal Father.

26:7.6 (293.4) Seldom does the quest for the Infinite Spirit fail of consummation, and when their subjects have succeeded in this phase of the Deity adventure, the Trinity guides prepare to transfer them to the ministry of the Son finders on the fourth circle of Havona.

8. THE SON FINDERS

26:8.1 (293.5) The fourth Havona circuit is sometimes called the “circuit of the Sons.” From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ascending pilgrims go to Paradise to achieve an understanding contact with the Eternal Son, while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descending pilgrims achieve a new comprehension of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reator Sons of time and space. There are seven worlds in this circuit on which the reserve corps of the Paradise Michaels maintain special service schools of mutual ministry to both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pilgrims; and it is on these worlds of the Michael Sons that the pilgrims of time and the pilgrims of eternity arrive at their first truly mutual understanding of one another. In many respects the experiences of this circuit are the most intriguing of the entire Havona sojourn.

26:8.2 (294.1) The Son finders are the superaphic ministers to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fourth circuit. In addition to the general work of preparing their candidates for a realization of the Trinity relationships of the Eternal Son, these Son finders

에, 이들 아들 발견자들은 그들의 피교육자들을 너무나도 충분히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성공적이 될 것인데: 첫째는, 아들에 대한 적절한 영적 이해에 있어서;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인성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으로부터 아들이 고유하게 독특한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무한한 영의 달성 이후에는, 아무 시험도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내부 순환계들의 시험은 신(神)들의 뒤덮음 안에 있을 때 순례 후보자들의 공적(功績)이다. 승진은 순전히 개별존재의 영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하느님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소유를 단정하지 못한다. 실패의 사건 안에서는 어떤 이유도 영원히 지정되지 않으며, 후보자들 자신이나 그들의 다양한 교사들 그리고 안내자들도 전혀 꾸지람을 듣거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실망감이 패배로 간주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연기되는 일은 결코 치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간의 외견상 실패들은 영원에서의 의의(意義)깊은 지연과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신(神) 모험여행에 있어서 걸음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지연을 체험하는 순례자는 많지 않다. 1번 초우주로부터 온 순례자가 첫 번째 시도에서 때때로 성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무한한 영을 달성한다. 영을 달성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되는 일이 드물며; 첫 번째 모험여행에서 실패한 그들 중에서, 거의 모두는 3번과 5번 초우주로부터 흩어져 나온다. 영과 아들을 발견한 후, 아버지를 달성하는 첫 번째 모험 여행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일부가 2번과 3번으로부터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6번 초우주로부터 흩어져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명백한 실패에 대하여 어떤 선하고도 만족스러운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에서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지연에 불과하다.

신(神) 모험여행을 향한 실패된 후보자들은 1차 초(超)천사들의 집단인 임무부와 우두머리들의 관할권 아래에 놓이고,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활동으로 귀환된다.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그 초우주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으며, 항상 두 번째 신(神) 모험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그들의 훈련을 위해 가장 알맞은 초우주로 돌아간다. 이러한 봉사 이후에, 그들 자신의 활동에 따라, 그들은 하보나의 외부 순환계로 돌아가는데, 중지되었던 그들의 생애의 순환계로 즉시 호송되며, 신(神) 모험여행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곧 시작한다. 2차 초(超)천사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선도(先導)하여 두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하는 일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동일한 초(超)천사 사명활동자들 그리고 다른 안내자들이 이 두 번째 모험여행 기간 동안 이들 후보자들을 항상 동행한다.

must so fully instruct their subjects that they will be wholly successful: first, in the adequate spiritual comprehension of the Son; second, in the satisfactory personality recognition of the Son; and third, in the proper differentiation of the Son from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Spirit.

26:8.3 (294.2) After the attainment of the Infinite Spirit, no more examinations are conducted. The tests of the inner circles are the performances of the pilgrim candidates when in the embrace of the enshrouding of the Deities. Advancement is determined purely by the spirituality of the individual, and no one but the Gods presumes to pass upon this possession. In the event of failure no reasons are ever assigned, neither are the candidates themselves nor their various tutors and guides ever chided or criticized. On Paradise, disappointment is never regarded as defeat; postponement is never looked upon as disgrace; the apparent failures of time are never confused with the significant delays of eternity.

26:8.4 (294.3) Not many pilgrims experience the delay of seeming failure in the Deity adventure. Nearly all attain the Infinite Spirit, though occasionally a pilgrim from superuniverse number one does not succeed on the first attempt. The pilgrims who attain the Spirit seldom fail in finding the Son; of those who do fail on the first adventure, almost all hail from superuniverses three and five. The great majority of those who fail on the first adventure to attain the Father, after finding both the Spirit and the Son, hail from superuniverse number six, though a few from numbers two and three are likewise unsuccessful. And all this seems clearly to indicate that there is some good and sufficient reason for these apparent failures; in reality, simply unescapable delays.

26:8.5 (294.4) The defeated candidates for the Deity adventure are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hiefs of assignment, a group of primary supernaphim, and are remanded to the work of the realms of spac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millennium. They never return to the superuniverse of their nativity, always to that supercreation most propitious for their re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second Deity adventure. Following this service, on their own motion, they return to the outer circle of Havona, are immediately escorted to the circle of their interrupted career, and at once resume their preparations for the Deity adventure. Never do the secondary supernaphim fail to pilot their subjects successfully on the second attempt, and the same superaphic ministers and other guides always attend these candidates during this second adventure.

순례자 혼이 하보나의 세 번째 순환계를 달성할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 초(超)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나이가 더 많고 매우 노련하며 가장 체험을 많이 한 자들의 감독 아래로 들어온다. 이 순환회로의 세계들에서 아버지 안내자들은 지혜 학교들과 기법 대학들을 유지하는데 그곳에서는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 교사들로서 봉사한다. 영원 달성을 이룩하는 이 초월적 모험여행에 나선 시간의 창조체에 대한 봉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우주 아버지의 달성은, 거쳐야 될 순환회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향한 여권이다. 그러므로 시간의 마지막 모험이 곧 시작될 것임; 영원의 문지방으로 통과하여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길을 공간의 다른 창조체가 찾고 있음을 운송 삼총사가 알릴 때 그것은 3번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다.

시간의 시험은 거의 끝났다; 영원을 향한 경주는 모두 되어왔고 다만 달릴 뿐이다. 불확실성의 날들은 끝났으며; 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다; 완전하게 되라는 명령은 이행되었다. 시간의 창조체이자 물질적 개인성이 지능 실존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공간의 진화 구체들을 상승해왔고, 그리하여 상승 계획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한편 그 세계들의 그의 비천한 창조체들에게 우주 아버지의 명령: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언제까지나 실증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한 세계 한 세계, 상승하는 생애가 정복되어 왔고, 신(神)의 목표가 달성되어 왔다. 생존이 완전 안에서 완성하고, 완전은 신성의 최극위 안에서 충만 된다. 시간은 영원 안에서 사라지고; 공간은 우주 아버지와의 경배하는 정체성과 조화 안에 삼켜진다. 하보나의 방송은 영광의 공간 보고서, 동물적 본성과 물질적 기원을 갖는 양심적인 창조체들이 진화하는 상승을 통하여, 참으로 진리 안에서 실체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느님의 완전해진 아들들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번개처럼 내보낸다.

제 10 장. 조언자들과 충고자

두 번째 순환계에 속하는 초(超)천사 조언자들과 충고자들은 영원의 생애에 관한 시간의 자녀들의 강사들이다. 파라다이스의 달성은 새롭고도 높은 계층의 책임을 수반하고, 두 번째 순환계에 머무는 일은 헌신된 이 초(超)천사들의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신(神) 달성에 대한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초우주 봉사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그 순환계로부터 두 번째 순환계로 직접 나아간

26:9.1 (294.5) When the pilgrim soul attains the third circle of Havona, he comes under the tutelage of the Father guides, the older, highly skilled, and most experienced of the superaphic ministers. On the worlds of this circuit the Father guides maintain schools of wisdom and colleges of technique wherein all the beings inhabiting the central universe serve as teachers. Nothing is neglected which would be of service to a creature of time in this transcendent adventure of eternity attainment.

26:9.2 (294.6)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assport to eternity, notwithstanding the remaining circuits to be traversed. It is therefore a momentous occasion on the pilot world of circle number three when the transit trio announce that the last venture of time is about to ensue; that another creature of space seeks entry to Paradise through the portals of eternity.

26:9.3 (295.1) The test of time is almost over; the race for eternity has been all but run. The days of uncertainty are ending; the temptation to doubt is vanishing; the injunction to be *perfect* has been obeyed. From the very bottom of intelligent existence the creature of time and material personality has ascended the evolutionary spheres of space, thus proving the feasibility of the ascension plan while forever demonstrating the justice and righteousness of the command of the Universal Father to his lowly creatures of the worlds: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26:9.4 (295.2) Step by step, life by life, world by world, the ascendant career has been mastered, and the goal of Deity has been attained. Survival is complete in perfection, and perfection is replete in the supremacy of divinity. Time is lost in eternity; space is swallowed up in worshipful identity and harmony with the Universal Father. The broadcasts of Havona flash forth the space reports of glory, the good news that in very truth the conscientious creatures of animal nature and material origin have, through evolutionary ascension, become in reality and eternally the perfected sons of God.

10. THE COUNSELORS AND ADVISERS

26:10.1 (295.3) The superaphic counselors and advisers of the second circle are the instructors of the children of time regarding the career of eternity. The attainment of Paradise entails responsibilities of a new and higher order, and the sojourn on the second circle affords ample opportunity to receive the helpful counsel of these devoted supernaphim.

26:10.2 (295.4) Those who are unsuccessful in the first effort at Deity attainment are advanced from the circle of failure directly to the second circle

다. 그래서 조연자들과 충고자들 역시 이 실망한 순례자들의 조연자들 그리고 위로자들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방금 부딪혔고, 이 실망은 사다리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긴 목록의 그러한 체험과—그 광대함을 제외하고—조금도 다를 바 없다. 체험적 잔을 끝까지 마신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나는 그들이 시간 속에서 일시적 실망감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사명활동자들로서 초우주 근무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 왔다.

2번 순환회로에 오래 머문 후에, 실망한 주제들은 이 순환계의 선도(先導)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협의회에 의해 검사를 받고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증된다; 비(非)영적 지위가 고려되는 한, 이것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신(神) 모험여행에서 이미 성공하였던 것처럼 시간의 우주들 안에서 동일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후보자들의 영은 전적으로 인정받을 만했다; 그들의 실패는 접근하는 기법의 어떤 위상 안에 또는 그들의 체험적 배경의 어느 부분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그 때 그 순환계의 조연자들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임무배정의 우두머리들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시간의 봉사에 귀환한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전의 날과 시대의 임무로 돌아간다. 어느 다른 날, 그들은 가장 실망했던 그 순환계로 돌아오고 신(神) 모험여행을 새롭게 시도한다.

두 번째 순환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들에게는 진화적 불확실성의 자극이 끝나지만, 영원한 임무를 띤 모험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순환계에 머무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매우 유익한 반면, 그 이전(以前) 순환계들의 어떤 기대에 부푼 열정은 없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세계들로 돌아가서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실제로 바라면서, 즐거운 시샘으로 긴 투쟁을 되돌아보는 순례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너희 필사자들이 초기의 젊은 삶의 투쟁을 가끔 돌아보면서 너희의 삶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안쪽의 순환계 횡단이 바로 앞에 있고, 그 후에 곧 마지막 운송 수면상태가 종료될 것이며,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순환계에 있는 조연자와 충고자는 이 위대한 마지막 휴식, 상승하는 생애의 신기원적 단계들 사이에 영원히 끼어 있는 필연적 잠을 위해 그들의 피지배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우주 아버지를 달성한 상승하는 그 순례자들이 두 번째-순환계 체험을 완료하면, 그들의 향상-

before they are returned to superuniverse service. Thus the counselors and advisers also serve as the counselors and comforters of these disappointed pilgrims. They have just encountered their greatest disappointment, in no way differing from the long list of such experiences whereon they climbed, as on a ladder, from chaos to glory — except in its magnitude. These are they who have drained the experiential cup to its dregs; and I have observed that they temporarily return to th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s as the highest type of loving ministrators to the children of time and temporal disappointments.

26:10.3 (295.5) After a long sojourn on circuit number two the subjects of disappointment are examined by the councils of perfection sitting on the pilot world of this circle and are certified as having passed the Havona test; and this, so far as nonspiritual status is concerned, grants them the same standing in the universes of time as if they had actually succeeded in the Deity adventure. The spirit of such candidates was wholly acceptable; their failure was inherent in some phase of the technique of approach or in some part of their experiential background.

26:10.4 (295.6) They are then taken by the counselors of the circle before the chiefs of assignment on Paradise and are remanded to the service of time on the worlds of space; and they go with joy and gladness to the tasks of former days and ages. In another day they will return to the circle of their greatest disappointment and attempt anew the Deity adventure.

26:10.5 (296.1) For the successful pilgrims on the second circuit the stimulus of evolutionary uncertainty is over, but the adventure of the eternal assignment has not yet begun; and while the sojourn on this circle is wholly pleasurable and highly profitable, it lacks some of the anticipative enthusiasm of the former circles. Many are the pilgrims who, at such a time, look back upon the long, long struggle with a joyous envy, really wishing they might somehow go back to the worlds of time and begin it all over again, just as you mortals, in approaching advanced age, sometimes look back over the struggles of youth and early life and truly wish you might live your lives over once again.

26:10.6 (296.2) But the traversal of the innermost circle lies just ahead, and soon thereafter the last transit sleep will terminate, and the new adventure of the eternal career will begin. The counselors and advisers on the second circle begin the preparation of their subjects for this great and final rest, the inevitable sleep which ever intervenes between the epochal stages of the ascendant career.

26:10.7 (296.3) When those ascendant pilgrim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complete the

참여하는 졸업생 안내자들은 그들을 최종적 순환계로 받아들인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들은 그들의 주체들을 개인적으로 선도(先導)하여 내부 순환계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들을 휴식보완자, 하보나의 세계 순환회로들에 있는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배정된 2차 초(超)천사 계층들 중 마지막 계층의 보호 아래에 둔다.

제 11 장. 휴식보완자

마지막 순환회로에서 보내는 상승자의 대부분의 시간은 파라다이스 거주자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에 바쳐진다. 대부분이 제시되지 않은, 광대하고 다양한 존재들의 무리가 하보나 세계들의 이 내부 고리의 영원한 그리고 과도기 거주민들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유형들의 혼합은 초(超)천사인 휴식보완자들에게,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교육을 증진시키는 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풍성한 상황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특별히 파라다이스에서 곧 만나게 되는 많은 존재 집단들에게 적응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

이 내부 순환회로에 거주하는 그들 중에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이 있다. 1차 그리고 2차 초(超)천사들은 이 아들들의 공동 무리단의 전반적 보호관리자들인데, 필사자 최종자의 삼위일체화 후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비슷한 자손을 포함한다. 이들 아들 중 일부는 초우주 정부에 포용되고 임명되며, 일부는 다양하게 배정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완전한 세계들에 있는 공동 무리단에 함께 모여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초(超)천사의 감독 아래에서 높은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특별하고 이름없는 무리단에 의해 어떤 미래의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랜한다의 시대 전에 영원으로 늘 계신이에 대한 첫 번째 집행적 보좌관들이었다. 삼위일체화된 존재들 중 이 두 독특한 집단들이 먼 미래에 함께 일하게 되리라고 추측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의 예비자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순환회로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둘 모두는 서로 그리고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과 형제우애화 한다. 그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상호-연관으로부터 큰 유익을 도출하며, 필사자 최종자들 중 삼위일체화된 아들들과 파라다이스 시민들 중 삼위일체화 아들들의 협동 형제우애관계를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것이 초(超)천사의 특별한 임무이다. 초(超)천사의 휴식보완자들은 그들의 훈련보다는,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분별 있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둔다.

second-circle experience, their ever-attendant Graduate Guides issue the order admitting them to the final circle. These guides personally pilot their subjects to the inner circle and there place them in the custody of the complements of rest, the last of those orders of secondary supernaphim assigned to the ministry of the pilgrims of time on the world circuits of Havona.

11. THE COMPLEMENTS OF REST

26:11.1 (296.4) Much of an ascender's time on the last circuit is devoted to a continuation of the study of the impending problems of Paradise residence. A vast and diverse host of beings, the majority unrevealed, are permanent and transient residents of this inner ring of Havona worlds. And the commingling of these manifold types provides the superaphic complements of rest with a rich situational environment which they effectively utilize in furthering the education of the ascending pilgri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adjustment to the many groups of beings soon to be encountered on Paradise.

26:11.2 (296.5) Among those who dwell on this inner circuit are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upernaphim are the general custodians of the conjoint corps of these sons, including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mortal finaliters and similar progeny of the Paradise Citizens. Certain of these sons are Trinity embraced and commissioned in the supergovernments, others are variously assigned, but the great majority are being gathered together in the conjoint corps on the perfect worlds of the inner Havona circuit. H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naphim, they are being prepared for some future work by a special and unnamed corps of high Paradise Citizens who were, prior to the times of Grandfanda, first executive assistants to the Eternals of Days. There are many reasons for conjecturing that these two unique groups of trinitized beings are going to work together in the remote future, not the least of which is their common destiny in the reserves of the Paradis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26:11.3 (296.6) On this innermost circuit, both the ascending and the descending pilgrims fraterniz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creature-trinitized sons. Like their parents, these sons derive great benefits from interassociation, and it is the special mission of the supernaphim to facilitate and to insure the confraternity of the trinitized sons of the mortal finaliters and the trinitized sons of the Paradise Citizens. The superaphic complements of rest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ir training as with promoting their understanding association with diverse groups.

필사자들은 이러한 파라다이스 명령을 받아들여 왔다: “너희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 감독하는 초(超)천사들은 삼위일체화된, 이 공동 무리단의 아들들에게 끊임 없이 이렇게 선포 한다: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이 그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상승하는 형제들을 납득하라.”

필사 창조체는 하느님을 발견해야만 한다. 창조자 아들은 그가 사람—가장 낮은 의지 창조체—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필사자 자녀들은 어떤 미래의 그리고 미지의 우주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둘 모두 체험적 우주 전체를 지나가고 그리하여 그들의 영원한 임무를 위해 교육되고 훈련된다. 우주들에 두루, 이 창조체와 창조자의 혼합, 인간의 것과 신성한 것의 독특한 혼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각없는 필사자들은, 사람모습으로 하느님이 나타남으로서, 특히 약하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신성한 자비와 온정을 현시활동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인간 존재로서 자비와 관용의 그러한 현시활동은 오히려 필사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증거; 결국은 창조체는 신성이 동기를 일으킨다는 증거로서 여겨야 할 것이다.

첫째 순환계에서의 체류가 끝나갈 때가 되면 그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초(超)천사의 첫 번째 계층 중 휴식 선동자들을 처음으로 만난다. 이들은 마지막 부활의 변형실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의 문지방에서 있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오는 파라다이스의 천사들이다. 너희는 시간을 종료하는 수면상태로부터 영원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내부 순환계를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파라다이스의 자녀들이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들은 하보나의 첫 순환계에서 이 휴식을 시작하고 잠을 자게 되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해변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상승한 모든 존재들 중에서, 그렇게 도착한 자들만이 영원의 자녀들이다; 나머지는 방문자들로써, 거주 지위를 갖지 않은 손님들로서 간다.

그리고 이제, 하보나 생애의 최고점에서, 너희 필사자들이 내부 순환회로의 선도(先導) 세계에서 잠을 자게 될 때, 너희는 필사자 죽음이라는 자연적 잠에서 너희 눈을 감았을 때 너희가 기원된 그 세계들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홀로 휴식에 들어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하보나를 향한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긴 운송 혼수상태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했던 것보다 다르다. 이제, 너희가 달성 휴식을 위해 준비함에 따라, 네 곁에는 첫 번째 순환계에서 너희와 긴 기간 같이 했던 연관-동료, 너희의 과도기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오직 완전의 마지막 손길을 기다린다는, 하보나의 서약으로서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되어 휴식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장엄한 휴식보완자가 너를 따라 움직인다.

너희의 최초 변형은 정말로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잠이었으며, 이제 세 번째 탈바

26:11.4 (297.1) Mortals have received the Paradise command: “Be you perfect, even as your Paradise Father is perfect.” To these trinitized sons of the conjoint corps the supervising supernaphim never cease to proclaim: “Be you understanding of your ascendant brethren, even as the Paradise Creator Sons know and love them.”

26:11.5 (297.2) The mortal creature must find God. The Creator Son never stops until he finds man — the lowest will creature. Beyond doubt, the Creator Sons and their mortal children are preparing for some future and unknown universe service. Both traverse the gamut of the experiential universe and so are educated and trained for their eternal mission. Throughout the universes there is occurring this unique blending of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commingling of creature and Creator. Unthinking mortals have referred to the manifestation of divine mercy and tenderness, especially towards the weak and in behalf of the needy, as indicative of an anthropomorphic God. What a mistake! Rather should such manifestations of mercy and forbearance by human beings be taken as evidence that mortal man is indwelt by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that the creature is, after all, divinity motivated.

26:11.6 (297.3) Near the end of the first-circle sojourn the ascending pilgrims first meet the instigators of rest of the primary order of supernaphim. These are the angels of Paradise coming out to greet those who stand at the threshold of eternity and to complete their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slumber of the last resurrection. You are not really a child of Paradise until you have traversed the inner circle and have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of eternity from the terminal sleep of time. The perfected pilgrims begin this rest, go to sleep, on the first circle of Havona, but they awaken on the shores of Paradise. Of all who ascend to the eternal Isle, only those who thus arrive are the children of eternity; the others go as visitors, as guests without residential status.

26:11.7 (297.4) And now, at the culmination of the Havona career, as you mortals go to sleep on the pilot world of the inner circuit, you go not alone to your rest as you did on the worlds of your origin when you closed your eyes in the natural sleep of mortal death, nor as you did when you entered the long transit trance preparatory for the journey to Havona. Now, as you prepare for the attainment rest, there moves over by your side your long-time associate of the first circle, the majestic complement of rest, who prepares to enter the rest as one with you, as the pledge of Havona that your transition is complete, and that you await only the final touches of perfection.

26:11.8 (297.5) Your first transition was indeed death, the second an ideal sleep, and now the third

꿈은 참된 휴식, 오랜 세월의 이완-휴식이다.

metamorphosis is the true rest, the relaxation of the ages.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 되었음]

26:11.9 (297.6)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 27 편 1차 초(超)천사의 사명활동

⇨ 026

유랜시아 책

028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7 편 1차 초(超)천사의 사명활동

섹션

소개

- 제 1 장. 휴식 선동자
- 제 2 장. 임무배정 우두머리
- 제 3 장. 윤리 통역자
- 제 4 장. 행위의 지도자
- 제 5 장. 지식 보호관리자
- 제 6 장. 철학의 대가
- 제 7 장. 경배 지휘-안내자

소개

1차 초(超)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 섬에 있는 신(神)들의 숭고한 하인들이다. 그들은 빛과 정의(正義)의 경로들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출석 점호는 완벽하다; 이 장엄한 무리 중 어느 하나도 영원으로부터 잃어진 적이 없었다. 이 높은 초(超)천사들은 완전 존재들, 완전에서 최극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亞)절대도 아니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완전성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임무들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 교대로 그리고 고 의지에 따라 활동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다양한 1,000년마다의 모임과 집단적 재결합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밖에서는 광대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신(神)들의 특별 메신저들로서 나아가기도 하며, 많은 숫자는 기술충고자들로 승격된다.

1차 초(超)천사들은 반역으로 인하여 고립된 세계들에서 사명활동하는 세라핌천사 무리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 파라다이스 아들이 그러한 세계에 증여되고,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주 아버지에게로 상승하고, 받아들여지고, 고립된 이 세계의 인가받은 구원자로서 돌아오면, 세

PAPER 27

MINISTRY OF THE PRIMARY SUPERNAPHIM

SECTIONS

Introduction

- 1. Instigators of Rest
- 2. Chiefs of Assignment
- 3. Interpreters of Ethics
- 4. Directors of Conduct
- 5. The Custodians of Knowledge
- 6. Masters of Philosophy
- 7. Conductors of Worship

INTRODUCTION

27:0.1 (298.1) PRIMARY supernaphim are the supernal servants of the Deities o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Never have they been known to depart from the paths of light and righteousness. The roll calls are complete; from eternity not one of this magnificent host has been lost. These high supernaphim are perfect beings, supreme in perfection, but they are not absonite, neither are they absolute. Being of the essence of perfection, thes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work interchangeably and at will in all phases of their manifold duties. They do not function extensively outside Paradise, though they do participate in the various millennial gatherings and group reunions of the central universe. They also go forth as special messengers of the Deities, and in large numbers they ascend to become Technical Advisers.

27:0.2 (298.2) Primary supernaphim are also placed in command of the seraphic hosts ministering on worlds isolated because of rebellion. When a Paradise Son is bestowed upon such a world, completes his mission, ascends to the Universal Father, is accepted, and returns as the accredited

롭게 개선된 그 구체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 활동 영들을 지휘하도록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에 의해 1차 초(超)천사가 항상 지명된다. 이러한 특별 봉사를 하는 초(超)천사들은 주기적으로 교대된다. 유란시아의 경우 현재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시기 이래로 임무를 수행해 온 이 계층 중 두 번째이다.

영원 전부터 1차 초(超)천사들이 빛의 섬에서 봉사해 왔고 공간의 세계들에 대한 지도자 자격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그들은 오직 시간의 하보나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이후로부터만 지금처럼 분류되어 기능해 왔다. 이 높은 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봉사 계층들 안에서 주로 사명활동한다:

1. 경배 지휘-안내자.
2. 철학의 스승.
3. 지식 보호관리자.
4. 행위 지도자.
5. 윤리 통역자.
6. 임무배정 우두머리.
7. 휴식 선동자.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 거주권을 실제로 달성하기 전에는 그들이 이 초(超)천사들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며, 그 후에는 그들의 이름의 순서와는 반대로 이 천사들의 지도에 따라 훈련 체험을 통과해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휴식 선동자들의 감독 아래에서 너희 파라다이스 생애를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든 계층들과 연속적인 기간을 보낸 후에, 경배 지휘-안내자들과 함께 이 훈련기간을 완결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최종자의 끝없는 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제 1 장. 휴식 선동자

휴식 선동자들은 파라다이스의 검열자들인데, 그들은 중앙 섬으로부터 하보나의 내부 순환 회로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그들의 동료, 2차 계층의 초(超)천사들로 구성된 휴식보완자들과 협동한다. 파라다이스를 즐기는 것에 기본적인 한 가지는 휴식, 신성한 휴식이다; 이 휴식 선동자들은 영원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시간의 순례자들을 준비시키는 최종적 강사들이다. 그들은 중앙 우주의 최종적 달성 순환계에서 활동하고, 그 순례자가 마지막 변형 수면상태, 영원의 영역 안으로 공간의 창조체를 졸업시키는 수면상태로부터 깨어날 때 그것을 계속한다.

휴식은 칠중 본성을 지닌다; 비교적 낮은 창조체 계층에서의 수면과 놀이의 휴식, 고등 존재

deliverer of this isolated world, a primary supernaphim is always designated by the chiefs of assignment to assume command of the ministering spirits on duty in the newly reclaimed sphere. Supernaphim in this special service are periodically rotated. On Urantia the present “chief of seraphim” is the second of this order to be on duty since the times of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27:0.3 (298.3) From eternity the primary supernaphim have served on the Isle of Light and have gone forth on missions of leadership to the worlds of space, but they have functioned as now classified only since the arrival on Paradise of the Havona pilgrims of time. These high angels now minister chiefly in the following seven orders of service:

- 27:0.4 (298.4) 1. Conductors of Worship.
- 27:0.5 (298.5) 2. Masters of Philosophy.
- 27:0.6 (298.6) 3. Custodians of Knowledge.
- 27:0.7 (298.7) 4. Directors of Conduct.
- 27:0.8 (298.8) 5. Interpreters of Ethics.
- 27:0.9 (298.9) 6. Chiefs of Assignment.
- 27:0.10 (298.10) 7. Instigators of Rest.

27:0.11 (298.11) Not until the ascending pilgrims actually attain Paradise residence do they come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se supernaphim, and then they pass through a training experience under the direction of these angels in the reverse order of their naming. That is, you enter upon your Paradise career under the tutelage of the instigators of rest and, after successive seasons with the intervening orders, finish this training period with the conductors of worship. Thereupon are you ready to begin the endless career of a finaliter.

1. INSTIGATORS OF REST

27:1.1 (299.1) The instigators of rest are the inspectors of Paradise who go forth from the central Isle to the inner circuit of Havona, there to collaborate with their colleagues, the complements of rest of the secondary order of supernaphim. The one essential to the enjoyment of Paradise is rest, divine rest; and these instigators of rest are the final instructors who make ready the pilgrims of time for their introduction to eternity. They begin their work on the final attainment circle of the central universe and continue it when the pilgrim awakes from the last transition sleep, the slumber which graduates a creature of space into the realm of the eternal.

27:1.2 (299.2) Rest is of a sevenfold nature: There is the rest of sleep and of play in the lower life orders,

들에 있는 발견, 그리고 최고유형의 영 개인성에 있는 경배가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의 일반적 휴식, 존재의 물리적 또는 영적 에너지 재충전도 있다. 그 다음에는 통과 수면,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이동할 때 세라핌천사로 둘러싸이는 무의식 수면이 있다. 이 모든 것들과 전반적으로 다른, 탈바꿈의 깊은 수면상태가 있다, 이는 존재에서의 한 단계에서 다른 곳으로, 한 생애에서 다른 곳으로, 한 실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의 과도기 휴식, 한 지위의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 진화와 대조되는, 실재적 우주 지위에서 끝없는 과도기에 참여하는 그런 수면이다.

그러나 마지막 행태변형 수면은 상승자 생애의 성공적인 지위 달성을 표시해 온 그 이전의 과도기 수면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로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의 무(無)시간 그리고 무(無)공간 거주지에서 주거 지위를 달성하려고 일시적이자 공간적 세계의 가장 안쪽 여백을 지나간다. 휴식의 선동자들 그리고 보완자들은 필사 창조체의 죽음에서의 생존에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연관된 존재들이 필수적인 것과 똑같이 이 초월하는 변형에 필수적이다.

너희는 최종 하보나 순환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부활된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영적으로 재(再)개인성구현 하면서, 너희는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회로에서 1차 초(超)천사로서 최종 수면상태를 산출했던 바로 그 초(超)천사인, 영원한 해변에 이른 너희를 환영하는 휴식 선동자를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손 안에 너희 정체성을 맡기려는 것을 다시 한 번 찬양하려고 준비하면서, 너희는 신앙의 마지막 위대한 뻔침을 상기할 것이다.

시간의 마지막 휴식을 즐겨왔고; 마지막 과도기 수면은 이미 체험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거주지의 해변에서 영속하는 삶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수면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아들의 현존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하인이 된다; 너희는 그의 얼굴을 보아 왔고, 그의 이름은 너희의 영이다.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태양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끝없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음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이다.”

제 2 장. 임무배정 우두머리

이것은 우두머리 초(超)천사, “기원적 원형들 천사”에 의하여, 이들 천사 계층—1차, 2차, 그리고 제3의— 모든 세 계층의 조직을 주관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지정하는 집단이다. 하나의 몸체로서, 초(超)천사들은, 이들 모든 영 개인성들을 언

discovery in the higher beings, and worship in the highest type of spirit personality. There is also the normal rest of energy intake, the recharging of beings with physical or with spiritual energy. And then there is the transit sleep, the unconscious slumber when enseraphimed, when in passage from one sphere to another. Entirely different from all of these is the deep sleep of metamorphosis, the transition rest from one stage of being to another, from one life to another, from one state of existence to another, the sleep which ever attends transition from actual universe *status* in contrast to evolution through various *stages* of any one status.

27.1.3 (299.3) But the last metamorphic sleep is something more than those previous transition slumbers which have marked the successive status attainments of the ascendant career; thereby do the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raverse the innermost margins of the temporal and the spatial to attain residential status in the timeless and spaceless abodes of Paradise. The instigators and the complements of rest are just as essential to this transcending metamorphosis as are the seraphim and associated beings to the mortal creature's survival of death.

27.1.4 (299.4) You enter the rest on the final Havona circuit and are eternally resurrected on Paradise. And as you there spiritually repersonalize, you will immediately recognize the instigator of rest who welcomes you to the eternal shores as the very primary supernaphim who produced the final sleep on the innermost circuit of Havona; and you will recall the last grand stretch of faith as you once again made ready to commend the keeping of your identity into the hands of the Universal Father.

27.1.5 (299.5) The last rest of time has been enjoyed; the last transition sleep has been experienced; now you awake to life everlasting on the shores of the eternal abode. “And there shall be no more sleep. The presence of God and his Son are before you, and you are eternally his servants; you have seen his face, and his name is your spirit. There shall be no night there; and they need no light of the sun, for the Great Source and Center gives them light; they shall live forever and ever. And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either sorrow nor crying, neither shall there be any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have passed away.”

2. CHIEFS OF ASSIGNMENT

27.2.1 (300.1) This is the group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chief supernaphim, “the original pattern angel,” to preside over the organization of all three orders of these angels —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The supernaphim, as a

제까지나 주관하는, 파라다이스의 첫 번째 천사인 그들 상호간의 우두머리의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자치-관리적이고 그리고 자아-규율적이다.

임무배정의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영화롭게 된 필사자 거주자들이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 대단히 많다. 연구와 교육만이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의 독점적 직업은 아니며; 봉사 역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이전(以前) 교육 체합들 안에 있는 기본적 부분의 역할을 한다. 나는 상승한 그 필사자들이 여가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이 임무배정의 초(超)천사 우두머리들의 예비무리단과 형제우애를 가지고 자 하는 일반적 애정을 보이는 것을 목격해 왔다.

너희 필사자 상승자들이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면, 너희의 사회적 관계는 고양되고 신성한 존재들의 무리와 그리고 영화롭게 된 동료 필사자들로 구성된 친밀한 군중들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함한다. 너희는 또한 파라다이스 시민들로 구성된 위를 향한 3,000가지 다른 계층들과, 초월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들과, 그리고 유란시아에 계시된 바 없는 수많은 다른 유형의 파라다이스 거주자들과 영구적 거주자들과 과도기 거주자들과 반드시 형제우애관계를 가지게 된다. 파라다이스의 이 막강한 지능체들과 일관된 접촉을 가진 후에, 천사 유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매우 평온하게 방문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래 접촉하였던 그리고 상쾌한 관계적-연합을 이루었던 그들을 그 세라핌천사들의 시간의 필사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제 3 장. 윤리 통역자

너희가 삶의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주 윤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 인식은 단지 어떤 개별존재가, 어떤 다른 개별존재 그리고 모든 다른 개별존재의 실존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권리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윤리는 개인과 집단 관계에 대한 필사자 개념, 그리고 심지어는 모론시아 개념들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윤리는 파라다이스의 영광을 향한 그들의 긴 상승 기간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지고 적절하게 배워진다. 안쪽을 향한 이 상승 생애가 공간의 탄생 세계들로부터 펼쳐짐에 따라, 상승자들은 우주 연관-동료들의 계속-넓어지는 모임에 집단에 집단을 추가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까지 새로운 동료들 집단마다, 인지되어지고 또 동의되어야 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 차원을 추가하며 만나게 되고 그러한 시기마다 윤리적 해석에 관한 도움이 되고 친근한 조언을 제공할 누군가를 그들이 실제로 필요 하게 된다. 그들이 윤리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새로운 것과 접촉하는 비범한 과제에 직접 부딪쳐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그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수고하며 배워왔던 것들이 무

body, are wholly self-governing and self-regulatory except for the functions of their mutual chief, the first angel of Paradise, who ever presides over all these spirit personalities.

27:2.2 (300.2) The angels of assignment have much to do with glorified mortal residents of Paradise before they are admitted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Study and instruction are not the exclusive occupations of Paradise arrivals; service also plays its essential part in the prefinaliter educational experiences of Paradise. And I have observed that, when the ascendant mortals have periods of leisure, they evince a predilection to fraternize with the reserve corps of the superaphic chiefs of assignment.

27:2.3 (300.3) When you mortal ascenders attain Paradise, your societal relationships involve a great deal more than contact with a host of exalted and divine beings and with a familiar multitude of glorified fellow mortals. You must also fraternize with upwards of three thousand different orders of Paradise Citizens, with the various groups of the Transcendentals, and with numerous other types of Paradise inhabitants, permanent and transient, who have not been revealed on Urantia. After sustained contact with these mighty intellects of Paradise, it is very restful to visit with the angelic types of mind; they remind the mortals of time of the seraphim with whom they have had such long contact and such refreshing association.

3. INTERPRETERS OF ETHICS

27:3.1 (300.4) The higher you ascend in the scale of life, the more attention must be paid to universe ethics. Ethical awareness is simply the recognition by any individual of the rights inherent in the existence of any and all other individuals. But spiritual ethics far transcends the mortal and even the morontia concept of personal and group relations.

27:3.2 (300.5) Ethics has been duly taught and adequately learned by the pilgrims of time in their long ascent to the glories of Paradise. As this inward-ascending career has unfolded from the nativity worlds of space, the ascenders have continued to add group after group to their ever-widening circle of universe associates. Every new group of colleagues met with adds one more level of ethics to be recognized and complied with until, by the time the mortals of ascent reach Paradise, they really need someone to provide helpful and friendly counsel regarding ethical interpretations. They do not need to be taught ethics, but they do need to have what they have so laboriously learned properly *interpreted* to them as they are brought face to face with the extraordinary task of

엇인지를 그들에게 적절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윤리 통역자들은 거주 지위 획득으로부터 필사자 최중자 무리단 안으로 정식 징병되기까지 확장되는 사건 많은 그 기간 동안 장엄한 집단들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들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돕는데 있어서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에게 해야 할 수 없는 도움을 준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인 수많은 유형의 파라다이스 시민들 대부분이 이미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에서 만났다.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또한 하보나 내부 순환회로에 있는 공동 무리단에 속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누려 왔는데, 그곳에서 이 존재들은 많은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순환회로들에서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미래의 계시되지 않은 임무들을 준비하면서 집단 훈련을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거주자들을 만났다.

이 모든 천상의 동행자신분들은 항상 상호적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서, 너희는 이러한 연속적인 우주 교체들 그리고 점점 더 신성한 연관-동료들의 그러한 수많은 계층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와 연관을 이루어 오기 위하여 그들 각자를 다르면서도 더 낮게 언제까지나 만드는 너희 자신의 개인성 그리고 체험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이들 형제우애의 존재들 각각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제 4 장. 행위의 지도자

파라다이스 관계들의 윤리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가르쳐졌으므로—무의미한 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특권계급의 명령도 아닌, 오히려 선천적인 타당성—상승하는 인간들은 초(超)천사 행위 지도자의 조언을 접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머무는 높은 존재들의 완전한 행위성의 관습에 관하여 파라다이스 사회의 새 구성원들을 가르친다.

조화는 중앙우주의 기본음이며, 탐지 할 수 있는 질서가 파라다이스를 지배한다. 적절한 행위성은 지식의 길을 거치고 철학을 통과해 자발적 경배의 영적 최고봉에 이르는 진보에 기본요소이다. 신성에 접근하는 데에는 신성한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의 획득은 파라다이스에 순례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것의 마음은 하보나의 순환계들에게 알려져 왔지만 시간의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빛의 섬을 달성한 이후(以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모든 파라다이스 행위성은 온통 자발적인데,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그러나 영원한 섬 위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적절하고도 완전한

contacting with so much that is new.

27.3.3 (300.6) The interpreters of ethics are of inestimable assistance to the Paradise arrivals in helping them to adjust to numerous groups of majestic beings during that eventful period extending from the attainment of residential status to formal induction in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Many of the numerous types of Paradise Citizens the ascendant pilgrims have already met 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The glorified mortals have also enjoyed intimate contact with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f the conjoint corps on the inner Havona circuit, where these beings are receiving much of their education. And on the other circuits the ascending pilgrims have met numerous unrevealed resident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who are there pursuing group training in preparation for the unrevealed assignments of the future.

27.3.4 (301.1) All these celestial companionships are invariably mutual. As ascending mortals you not only derive benefit from these successive universe companions and such numerous orders of increasingly divine associates, but you also impart to each of these fraternal beings something from your own personality and experience which forever makes every one of them different and better for having been associated with an ascending mortal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4. DIRECTORS OF CONDUCT

27.4.1 (301.2) Having already been fully instructed in the ethics of Paradise relationships — neither meaningless formalities nor the dictations of artificial castes but rather the inherent proprieties — the ascendant mortals find it helpful to receive the counsel of the superaphic directors of conduct, who instruct the new members of Paradise society in the usages of the perfect conduct of the high beings who sojourn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27.4.2 (301.3) Harmony is the keynote of the central universe, and detectable order prevails on Paradise. Proper conduct is essential to progress by way of knowledge, through philosophy, to the spiritual heights of spontaneous worship. There is a divine technique in the approach to Divinity; and the acquirement of this technique must await the pilgrims' arrival on Paradise. The spirit of it has been imparted on the circles of Havona, but the final touches of the training of the pilgrims of time can be applied only after they actually attain the Isle of Light.

27.4.3 (301.4) All Paradise conduct is wholly spontaneous, in every sense natural and free. But there still is a proper and perfect way of doing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행위 지도자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손레자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완전한 편안함을 그들에게 주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문 안에 있는 손님들”의 편에 항상 서 있다. 오직 그러한 장치에 의해서만 끝없는 혼돈을 피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서는 혼돈이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이 행위 지도자는 실제로 영화롭게 된 선생과 안내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과 생소한 관습의 거의 끝없는 배열에 관하여 새로운 필사 거주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주로 관여한다. 그것을 위한 오랫동안의 준비와 그 이외의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거주 지위를 획득한 그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다.

제 5 장. 지식 보호관리자

지식의 초(超)천사 보호관리자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진바 된 비교적 높은 “살아있는 편지들”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신성한 기록들, 실제 지식들에 대한 살아있는 책들이다. 너희는 “생명 책”에 담긴 기록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지식 보호관리자들은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책들, 신성한 생명과 최극 확실성을 갖는 영원한 서판에 새겨진 완전성에 관한 기록들이다. 그들은 실체로서 살아있는 자동적 도서관들이다. 우주들의 사실들은 이 1차 초(超)천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데, 이 천사들 안에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의 진실과 시간의 지능에 대한 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저장소들의 마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허위가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일은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보호관리자들은 영원한 섬의 거주자들을 위한 비공식 교육 과정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주요 기능은 참조와 확인에 관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어떤 존재든지 그가 알고 싶어 하는 특별한 사실 또는 진리의 살아있는 저장고를 자기 옆에 뜻대로 둘 수 있다. 그 섬의 가장 북쪽에는 지식의 살아있는 습득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찾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집단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며, 너희가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 찬란한 존재들이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페이지들에 온통 매달리면서 그로부터 깨우침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너희는 이제 살아있는 지능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것의 최종 보호관리자들인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최극의 지식을 획득한다.

너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것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 초(超)천사의 위치를 확인할 때, 너희는 모든 우주들의 알려진 사실들 모든 가능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지식 보호관리자들은, 지역우주 그리고 초우주의 세라핌천

things on the eternal Isle, and the directors of conduct are ever by the side of the “strangers within the gates” to instruct them and so guide their steps as to put them at perfect ease and at the same time to enable the pilgrims to avoid that confusion and uncertainty which would otherwise be inevitable. Only by such an arrangement could endless confusion be avoided; and confusion never appears on Paradise.

27:4.4 (301.5) These directors of conduct really serve as glorified teachers and guides. They are chiefly concerned with instructing the new mortal residents regarding the almost endless array of new situations and unfamiliar usages. Notwithstanding all the long preparation thereto and the long journey thereto, Paradise is still inexpressibly strange and unexpectedly new to those who finally attain residential status.

5. THE CUSTODIANS OF KNOWLEDGE

27:5.1 (301.6) The superaphic custodians of knowledge are the higher “living epistles” known and read by all who dwell on Paradise. They are the divine records of truth, the living books of real knowledge. You have heard about records in the “book of lif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are just such living books, records of perfection imprinted upon the eternal tablets of divine life and supreme surety. They are in reality living, automatic libraries. The facts of the universes are inherent in these primary supernaphim, actually recorded in these angels; and it is also inherently impossible for an untruth to gain lodgment in the minds of these perfect and replete repositories of the truth of eternity and the intelligence of time.

27:5.2 (302.1) These custodians conduct informal courses of instruction for the residents of the eternal Isle, but their chief function is that of reference and verification. Any sojourner on Paradise may at will have by his side the living repository of the particular fact or truth he may wish to know. At the northern extremity of the Isle there are available the living finders of knowledge, who will designate the director of the group holding the information sought, and forthwith will appear the brilliant beings who are the very thing you wish to know. No longer must you seek enlightenment from engrossed pages; you now commune with living intelligence face to face. Supreme knowledge you thus obtain from the living beings who are its final custodians.

27:5.3 (302.2) When you locate that supernaphim who is exactly what you desire to verify, you will find available *all* the known facts of all universes, for these custodians of knowledge are the final and living summaries of the vast network of the

사들과 2품천사들로부터, 하보나에 있는 3차 초(超)천사들에 해당하는 기록자 우두머리들에 이르기까지, 기록하는 천사들의 광대한 연결조직 중 최종적이고도 살아있는 일람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지식 축적은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들, 우주적 역사의 누적된 요약과는 다르다.

진리의 지혜는 중앙우주의 신성 안에 기원을 가지지만, 그러나 지식, 체험적 지식은 주로 시간과 공간의 권역들 안에 그 시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천상의 기록자들에 의해 후원되는 기록하는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초(超)천사들의 멀리-퍼지는 초우주 조직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선천적으로 우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 1차 초(超)천사들은 그것의 조직과 분류에도 책임을 진다. 우주들의 우주의 살아있는 참고자료들 스스로 구성함에 있어서, 그들은 지식을 7개의 큰 계층으로 분류해 왔는데, 그 각각은 약 백만 개로 나뉘어 있다. 파라다이스의 거주민들이 이 광대한 지식 비축물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 보호관리자들의 자발적이고도 현명한 노력 덕분이다. 그 보호관리자들은 또한 중앙우주의 고양된 선생들이기도 한데, 하보나 순환회로들 중 어디서든지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의 살아있는 보물을 공짜로 나누어주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 광대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중앙 그리고 초우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 도서관은 지역 창조계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오직 간접적인 것 그리고 반영적으로만 파라다이스 지식의 혜택이 지역우주 안에서 보장된다.

제 6 장. 철학의 대가

경배에 대한 최극의 만족 바로 밑에는 철학의 유쾌함이 있다. 너희는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철학의 채택이 요구되는 1,000여 개의 신비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그토록 높이 올라가거나 멀리 나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파라다이스의 철학 스승들은 우주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분 좋게 추구함에 있어서 원주민이든 상승자이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인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초(超)천사 철학의 스승들은 “하늘의 지혜자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지식의 진리와 체험의 사실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존재들이다. 그들과 함께 하면 지식은 진리에 이르고 체험은 지혜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공간의 상승 개인성들이 존재의 정점을 체험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안다; 그들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 철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심지어 그들은 궁극자의 개념들을 획득하고자 추

recording angels, ranging from the seraphim and seconaphim of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to the chief recorde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in Havona. And this living accumulation of knowledge is distinct from the formal records of Paradise, the cumulative summary of universal history.

27:5.4 (302:3) The wisdom of truth takes origin in the divinity of the central universe, but knowledge, experiential knowledge, largely has its beginnings in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 therefore the necess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far-flung superuniverse organizations of the recording seraphim and supernaphim sponsored by the Celestial Recorders.

27:5.5 (302:4) These primary supernaphim who are inherently in possession of universe knowledge are also responsible for its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 In constituting themselves the living reference librar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y have classified knowledge into seven grand orders, each having about one million subdivisions. The facility with which the residents of Paradise can consult this vast store of knowledge is solely due to the voluntary and wise efforts of the custodians of knowledge. The custodians are also the exalted teachers of the central universe, freely giving out their living treasures to all beings on any of the Havona circuits, and they are extensively, though indirectly, utilized by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But this living library, which is available to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is not accessible to the local creations. Only by indirection and reflectively are the benefits of Paradise knowledge secured in the local universes.

6. MASTERS OF PHILOSOPHY

27:6.1 (302:5) Next to the supreme satisfaction of worship is the exhilaration of philosophy. Never do you climb so high or advance so far that there do not remain a thousand mysteries which demand the employment of philosophy in an attempted solution.

27:6.2 (302:6) The master philosophers of Paradise delight to lead the minds of its inhabitants, both native and ascendant, in the exhilarating pursuit of attempting to solve universe problems. These superaphic masters of philosophy are the “wise men of heaven,” the beings of wisdom who make use of the truth of knowledge and the facts of experience in their efforts to master the unknown. With them knowledge attains to truth and experience ascends to wisdom. On Paradise the ascendant personalities of space experience the heights of being: They have knowledge; they know the truth; they may philosophize — think the truth; they may even seek to encompass the concepts

구할 수 있고 절대자들의 기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다.

광대한 파라다이스 권역의 가장 남쪽에는 철학의 대가들이 지혜의 70개 기능적 부서들에서 정교한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무한성의 계획들과 목적들에 대해 강연하고, 그들의 지혜에 접근해 온 모든 존재들의 체험들을 조화-협동시키고 그 지식을 조립하기를 추구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우주 문제에 관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태도를 개발해 왔지만, 그들의 최종 결론은 항상 한결같이 일치한다.

이들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하보나의 비교적 높은 도형 기법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특정의 파라다이스 방법들을 포함한다. 지식을 전하고 개념들을 알리는 비교적 높은 이 기법들 전체는 심지어 가장 높게 발달된 인간 마음의 이해 능력을 철저히 초월한다. 파라다이스에서의 1시간의 교육은 유란시아의 언어-기억 방법으로 10,000년에 해당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통신 기법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단순히 필사 체험 속에서는 그것들이 비교될만한 어떤 것도 없을 뿐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전혀 없다.

철학의 스승들은 공간의 세계들로부터 상승해 온 그 존재들에게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전함에 있어서 최극의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지식의 사실들과 체험의 진리들처럼 그 결론에 있어서 철학이 그렇게 확정적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절대자들의 업적들에 대한 이 1차 초(超)천사 강연에 귀를 기울일 때, 너희는 정복되지 않은 이 질문들에 관한 분명한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들 지적 추구는 방송되지 않는다; 완전성의 철학은 직접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들에게만 가능하다. 회전하는 창조계들은 오직 이 체험을 이미 체험한 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를 공간의 우주들에게로 가지고 나간 그들로부터만 이 가르침들을 배운다.

of the Ultimate and attempt to grasp the techniques of the Absolutes.

27:6.3 (303.1) At the southern extremity of the vast Paradise domain the masters of philosophy conduct elaborate courses in the seventy functional divisions of wisdom. Here they discourse upon the plans and purposes of Infinity and seek to co-ordinate the experiences, and to compose the knowledge, of all who have access to their wisdom. They have developed a highly specialized attitude toward various universe problems, but their final conclusions are always in uniform agreement.

27:6.4 (303.2) These Paradise philosophers teach by every possible method of instruction, including the higher graph technique of Havona and certain Paradise methods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All of these higher techniques of imparting knowledge and conveying ideas are utterly beyond the comprehension capacity of even the most highly developed human mind. One hour's instruction on Paradise would be the equivalent of ten thousand years of the word-memory methods of Urantia. You cannot grasp such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there is simply nothing in mortal experience with which they may be compared, nothing to which they can be likened.

27:6.5 (303.3) The masters of philosophy take supreme pleasure in imparting their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those beings who have ascended from the worlds of space. And while philosophy can never be as settled in its conclusions as the facts of knowledge and the truths of experience, yet, when you have listened to these primary supernaphim discourse upon the unsolved problems of eternity and the performances of the Absolutes, you will feel a certain and lasting satisfaction concerning these unmastered questions.

27:6.6 (303.4) These intellectual pursuits of Paradise are not broadcast; the philosophy of perfection is available only to those who are personally present. The encircling creations know of these teachings only from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is experience, and who have subsequently carried this wisdom out to the universes of space.

제 7 장. 경배 지휘-안내자

경배는 창조된 모든 지능체들의 가장 높은 특권인 동시에 첫 번째 의무이다. 경배는 창조자들과 그들의 창조체들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한 진리와 사실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의식적이고도 즐거운 행위이다. 경배의 본질특성은 창조체 인식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하느님들의 무한 성격에 대한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경배의 행위는 창조된 존재들에게 알려진 가장 높은 체험적 환희와 가장 절묘한 기쁨의 영광을 그것이 결

7. CONDUCTORS OF WORSHIP

27:7.1 (303.5) Worship is the highest privilege and the first duty of all created intelligences. Worship is the conscious and joyous act of recognizing and acknowledging the truth and fact of the intimate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Creators with their creatures. The quality of worship is determined by the depth of creature perception; and as the knowledge of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Gods progresses, the act of worship becomes

국에는 달성할 때까지 점점 더 모든 것을-포함하는 것이 된다.

파라다이스 섬에 경배의 특별한 장소가 있지만, 그것은 신성한 예배봉사를 드리는 하나의 거대한 경배회당에 더 가깝다. 경배는 그것의 즐거운 해변으로 기어오른 모든 존재들의 첫 번째 그리고 지배적 열정—하느님의 현존에 도달하고자 그를 충분히 배워온 존재들의 자발적 분출—이다. 하보나를 통하여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경배는 파라다이스에서 그것의 표현을 지도하고 달리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될 때까지 자라 가는 열정이다.

파라다이스에서 즐기는 최극의 찬미와 영적 찬양의 주기적, 자발적, 집단적, 그리고 다른 특별한 분출은 1차 초(超)천사들 중 어떤 특별한 무리단의 지도 아래에서 운영된다. 이 경배 지휘-안내자들의 지도 아래에서, 그러한 경의는 최극의 기쁨이라는 창조체 목표를 성취하며 고상한 자아-표현과 개인적 즐거움의 완전성 절정을 달성한다. 모든 1차 초(超)천사들은 경배 지휘-안내자들이 되기를 갈망 한다;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주기적으로 이 모임을 해산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상승하는 존재들은 경배의 자세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승하는 존재도 경배에 있어서 그가 충분한 만족감을 달성할 때까지는 영원한 봉사의 임무배정에 들어가기로 결코 요청받지 않는다.

상승하는 창조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경배 드리면 자아-표현의 이 만족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파라다이스 체제의 기본적 행위들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가르치는 일이 경배 지휘-안내자들의 임무이다. 경배의 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능적 깊은 인정과 상승하는 감사의 자기감정에 대해 충만하고도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기까지,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보통의 필사자에게 수백 년이 소요될 것이다. 경배 지휘-안내자들은 새롭고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표현의 큰길을 열어주며, 공간이라는 모태와 시간이라는 진통의 이 놀라운 자녀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경배에 대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자아-표현과 올바르게 알고 있음을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드높여 줄 수 있는, 전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모든 기술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경배에서 그들이 가지는 최고의 수용능력에 이르기 까지 발휘되는 것이다. 경배는 파라다이스 실존에서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것은 상쾌하게 하는 파라다이스의 놀이이다. 이 땅위에서 너희 지친 마음을 위하여 놀이가 해주는 것을, 파라다이스에서는 경배가 너희의 완전하게 된 혼에게 해준다. 파라다이스에서의 경배 양식은 필사자의 이해력을 철저히 초월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영은 여기 유란시아에서도 너희가 올바르게 알 수 있

increasingly all-encompassing until it eventually attains the glory of the highest experiential delight and the most exquisite pleasure known to created beings.

27:7.2 (303.6) While the Isle of Paradise contains certain places of worship, it is more nearly one vast sanctuary of divine service. Worship is the first and dominant passion of all who climb to its blissful shores — the spontaneous ebullition of the beings who have learned enough of God to attain his presence. Circle by circle, during the inward journey through Havona, worship is a growing passion until on Paradise it becomes necessary to direct and otherwise control its expression.

27:7.3 (304.1) The periodic, spontaneous, group, and other special outbursts of supreme adoration and spiritual praise enjoyed on Paradise are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a special corps of primary supernaphim. Under the direction of these conductors of worship, such homage achieves the creature goal of supreme pleasure and attains the heights of the perfection of sublime self-expression and personal enjoyment. All primary supernaphim crave to be conductors of worship; and all ascendant beings would enjoy forever remaining in the attitude of worship did not the chiefs of assignment periodically disperse these assemblages. But no ascendant being is ever required to enter upon the assignments of eternal service until he has attained full satisfaction in worship.

27:7.4 (304.2) It is the task of the conductors of worship so to teach the ascendant creatures how to worship that they may be enabled to gain this satisfaction of self-expression and at the same time be able to give attention to the essential activities of the Paradise regime. Without improvement in the technique of worship it would require hundreds of years for the average mortal who reaches Paradise to give full and satisfactory expression to his emotions of intelligent appreciation and ascendant gratitude. The conductors of worship open up new and hitherto unknown avenues of expression so that these wonderful children of the womb of space and the travail of time are enabled to gain the full satisfactions of worship in much less time.

27:7.5 (304.3) All the arts of all the beings of the entire universe which are capable of intensifying and exalting the abilities of self-expression and the conveyance of appreciation, are employed to their highest capacity in the worship of the Paradise Deities. *Worship is the highest joy of Paradise existence*; it is the refreshing play of Paradise. What play does for your jaded minds on earth, worship will do for your perfected souls on Paradise. The mode of worship on Paradise is utterly beyond mortal comprehension, but the spirit of it you can begin to appreciate even down here

다, 이는 하느님의 영들이 바로 지금도 너희 안에 깃들어 있고, 너희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참된 경배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에서 경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의 섬까지 체험으로 상승하는 눈부신 존재들의 성장하는 지능에서의 영적 감정이 항상-증가하여 넘쳐흐르는 것과 그리고 신성(神性) 인식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랜한다의 시대 이후로 늘, 파라다이스에서의 경배의 영을 초(超)천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 적응시킬 수 있었던 적이 없다. 그에 대한 준비로서 견주어 볼 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언제나 넘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 완전의 개인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훨씬 낮은 세계의 영적 어두움의 깊은 곳으로부터 천천히 그리고 수고하여 파라다이스 영광을 향해 그들의 상승길을 이루어 온 존재들이 보이는 영적 감정의 엄청난 반응을 결코 충분하게 깊이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의 천사들과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힘의 현존을 달성할 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들의 표현이 발생하고,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천사들이 몹시 놀라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 안에서 신성한 만족의 최극 기쁨이 산출되는 장관이다.

때로는 파라다이스 전체가 영적 그리고 경배 넘치는 표현의 솟아오르는 물결 속에 휩싸이게 된다. 경배 지휘-안내자들은 종종 신(神) 거주지의 빛이 삼중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러한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거주자들, 영광스러운 완전한 시민들 그리고 시간의 상승자들의 진지한 경배에 의해 하느님들의 신성한 가슴이 충만하고도 완벽하게 만족됨을 의미한다. 얼마나 놀라운 기법의 위대한 승리인가! 피조 자녀의 지능적 사랑이 창조자 아버지의 무한 사랑에 충만한 만족감을 드리게 되는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목적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가!

경배의 충만함이라는 최극의 만족감을 달성한 후, 너희는 최종의 무리단으로 들어가도록 분별화된다. 그 상승 생애는 거의 완결되었고, 일곱 번째 축전이 준비된다. 첫 번째 축전은 생존되는 목적이 봉인될 때 생각 조절자와의 필사자 계약이라는 표를 남겼다; 두 번째는 모론시아 삶 속에서 깨어났을 때이다; 세 번째는 생각 조절자와의 결합이었다; 네 번째는 하보나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다섯 번째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발견을 축하할 때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축전은 시간의 마지막 통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파라다이스 행사가 있을 때였다. 일곱 번째 축전은 영원 봉사의 시작과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의 입장이라는 표를 남긴다. 최종자에 의한 영 실현의 일곱 번째 단계 달성은 아마도 영원의 축전들 중에서 첫 번째의 축하임을 널리 표시할 것이다.

on Urantia, for the spirits of the Gods even now indwell you, hover over you, and inspire you to true worship.

27.7.6 (304.4) There are appointed times and places for worship on Paradise, but these are not adequate to accommodate the ever-increasing overflow of the spiritual emotions of the growing intelligence and expanding divinity recognition of the brilliant beings of experiential ascension to the eternal Isle. Never since the times of Grandfanda have the supernaphim been able fully to accommodate the spirit of worship on Paradise. Always is there an excess of worshipfulness as gauged by the preparation therefor. And this is because personalities of inherent perfection never can fully appreciate the tremendous reactions of the spiritual emotions of beings who have slowly and laboriously made their way upward to Paradise glory from the depths of the spiritual darkness of the lower worlds of time and space. When such angels and mortals of time attain the presence of the Powers of Paradise, there occurs the expression of the accumulated emotions of the ages, a spectacle astounding to the angels of Paradise and productive of the supreme joy of divine satisfaction in the Paradise Deities.

27.7.7 (304.5) Sometimes all Paradise becomes engulfed in a dominating tide of spiritual and worshipful expression. Often the conductors of worship cannot control such phenomena until the appearance of the threefold fluctuation of the light of the Deity abode, signifying that the divine heart of the Gods has been fully and completely satisfied by the sincere worship of the residents of Paradise, the perfect citizens of glory and the ascendant creatures of time. What a triumph of technique! What a fruition of the eternal plan and purpose of the Gods that the intelligent love of the creature child should give full satisfaction to the infinite love of the Creator Father!

27.7.8 (305.1) After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satisfaction of the fullness of worship, you are qualified fo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 ascendant career is well-nigh finished, and the seventh jubilee prepares for celebration. The first jubilee marked the mortal agreement with the Thought Adjuster when the purpose to survive was sealed; the second was the awakening in the morontia life; the third was the fus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the fourth was the awakening in Havona; the fifth celebrated the finding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sixth jubilee was the occasion of the Paradise awakening from the final transit slumber of time. The seventh jubilee marks entrance into the mortal finaliter corps and the beginning of the eternity service. The attainment of the seventh stage of spirit realization by a finaliter will probably signalize the celebration of the first of the jubilees of eternity.

그리하여 파라다이스 초(超)천사들,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 안으로 소집되고 영원의 삼위일체 서약을 하면서 경배 지휘-안내자들이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작별을 고할 때까지, 하나의 우주 등급으로서 너희가 기원된 세계로부터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했던, 사명활동하는 전체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끝없는 봉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최종자는 궁극자 하느님의 도전과 마주한다.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27:7.9 (305.2) And thus ends the story of the Paradise supernaphim, the highest order of all the ministering spirits, those beings who, as a universal class, ever attend you from the world of your origin until you are finally bidden farewell by the conductors of worship as you take the Trinity oath of eternity an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27:7.10 (305.3) The endless service of the Paradise Trinity is about to begin; and now the finaliter is face to face with the challenge of God the Ultimate.

27:7.11 (305.4) [Presented by a Perfector of Wisdom from Uversa.]

제 28 편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

⇨ 027

유랜시아 책

029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8 편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

섹션

소개

제 1 장. 3품천사

제 2 장. 전(全)천사

제 3 장. 2품천사

제 4 장. 1차 2품천사

제 5 장. 2차 2품천사

제 6 장. 3차 2품천사

제 7 장. 2품천사들의 사명활동

PAPER 28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ertiaphim

2. The Omniaphim

3. The Seconaphim

4. The Primary Seconaphim

5. The Secondary Seconaphim

6. The Tertiary Seconaphim

7. Ministry of the Seconaphim

소개

초(超)천사들이 중앙우주의 천사 무리이고 지역우주들의 세라핌천사들인 것처럼, 2품천사들은 초우주의 사명활동 영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에서 그리고 최극위의 잠재성에서, 이들 반영 영의 자녀들은 세라핌천사보다는 초(超)천사와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초(超)창조들 안에서 홀로 봉사하지 않으며, 각각 수많은 그리고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모두가 계시되지 않은 그들 연관-동료들이 후원하는 활동행위들이다.

이 글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영들은 다음과 같은 세 계층들을 포용한다:

1. 2품천사.
2. 3품천사.
3. 전(全)천사.

마지막 두 계층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2품천사들에 대해 더욱 확대된 고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논의될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3품천사나 전(全)천사는 둘 모두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INTRODUCTION

28:0.1 (306.1) AS THE supernaphim are the angelic hosts of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eraphim of the local universes, so are the seconaphim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In degree of divinity and in potential of supremacy, however, thes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are much more like supernaphim than seraphim. They serve not alone in the supercreations, and both numerous and intriguing are the transactions sponsored by their unrevealed associates.

28:0.2 (306.2) As presented in these narratives,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embrace the following three orders:

28:0.3 (306.3) 1. The Seconaphim.

28:0.4 (306.4) 2. The Tertiaphim.

28:0.5 (306.5) 3. The Omniaphim.

28:0.6 (306.6) Since the latter two orders are not so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they will be briefly discussed prior to the more extended consideration of seconaphim. Technically, neither tertiaphim nor

영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 권역 안에서 영 사명활동자들로써 봉사하고 있다.

제 1 장. 3품천사

이 높은 천사들은 초우주 본부에 기록되어 있고, 한편 지역 창조계들 안에서 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역우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들 초우주 수도의 거주민들이다. 3품천사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며 1,000명의 집단으로 파라다이스에서 개인성구현된다. 신성한 기원성과 최극-인접 다재다능성을 갖는 이 뛰어난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자 아들들에게 수여된 무한한 영의 선물이다.

미가엘 아들이 파라다이스의 아버지 체제로부터 분리되고 공간의 우주 모험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무한한 영은 1,000명에 이르는 이동행자 영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가 우주를 조직하는 모험여행을 시작할 때 이 장엄한 3품천사들이 이 창조자 아들을 따라간다.

우주 건축의 초기 시간에 두루, 1,000명의 이 3품천사들은 창조자 아들의 유일한 개인적 참모진이다. 그들은 우주를 조립하고 천문상의 변형이 일어나는 이 활발한 시대 동안 아들 보좌관들로서 막강한 체험을 획득한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첫 태생인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성구현이 일어나는 날까지 창조자 아들 곁에서 봉사한다. 그 결과로 3품천사들의 공식 사임이 제출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원주민 천사 창조체의 첫 계층들이 출현함에 따라, 그들은 지역우주에서의 활동적 봉사로부터 물러나고, 그 이전에 배정되었던 창조자 아들과 관련된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사이를 연락하는 사명활동자들이 된다.

제 2 장. 전(全)천사

전천사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과 연락하여 무한한 영에 의해 창조되며, 그들은 동일한 이 최극집행자들의 독점적 하인들 그리고 메신저들이다. 전천사들은 대우주 임무배정에 속하며,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의 무리단이 유버사의 북쪽 부분에 본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특별 우대거류민단으로서 거주한다. 그들은 유버사에 등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리-행정에도 배속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필사자 진보의 상승 기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전(全)천사들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관점에서, 행정-관리적 조화-협동의 이익을 위해, 초우주

omniaphim are ministering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though both serve as spirit ministers *in* these domains.

1. THE TERTIAPHIM

28:1.1 (306.4) These high angels are of recor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and despite service in the local creations, technically they are residents of these superuniverse capitals inasmuch as they are not native to the local universes. Tertiaphim ar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and are personalized on Paradise in groups of one thousand. These supernal beings of divine originality and near-supreme versatility are the gift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Creator Sons of God.

28:1.2 (306.5) When a Michael Son is detached from the parental regime of Paradise and is made ready to go forth on the universe adventure of space, the Infinite Spirit is delivered of a group of one thousand of these companion spirits. And these majestic tertiaphim accompany this Creator Son when he embarks upon the adventure of universe organization.

28:1.3 (306.6) Throughout the early times of universe building, these one thousand tertiaphim are the only personal staff of a Creator Son. They acquire a mighty experience as Son assistants during these stirring ages of universe assembling and other astronomical manipulations. They serve by the side of the Creator Son until the day of the personalization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first-born of a local universe. Thereupon the formal resignations of the tertiaphim are tendered and accepted. And with the appearance of the initial orders of native angelic life, they retire from active service in the local universe and become the liaison ministers between the Creator Son of former attachment and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2. THE OMNIAPHIM

28:2.1 (307.1) Omniaphim are created by the Infinite Spirit in liaison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are the exclusive servants and messengers of these same Supreme Executives. Omniaphim are of grand universe assignment, and in Orvonton their corps maintains headquarters in the northerly parts of Uversa, where they reside as a special courtesy colony. They are not of registry on Uversa, nor are they attached to our administration. Neither are they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28:2.2 (307.2) The omniaphim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oversight of the superuniverses in the

들을 감독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 유버사에 있는 우리의 천천사 거류민단은, 파라다이스 위성들 중 외부 고리에 있는 7번 공동 집행 구체에 위치한, 오직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로부터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에게만 보고를 한다.

제 3 장. 2품천사

2품천사 무리는 각 초우주의 본부에 배정된 일곱 반영 영들에 의해 생겨난다. 한 집단이 일곱으로 이루어진 이들 천사들의 창조와 관련하여, 분명한 파라다이스-반응적 기법이 있다. 각 일곱들에는 항상 한 명의 1차 존재, 3명의 2차 존재, 그리고 3명의 3차 2품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항상 정확한 비율로 개인성구현한다. 그렇게 2품천사들로 이루어진 일곱들이 창조될 때마다, 1차적인 한 명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2차적인 3명의 천사들은 초우주 정부들에 있는 파라다이스-기원 행정-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세 집단들과 연관된다; 이들은 신성한 조언자들, 지혜의 완전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이다. 3차적인 3명의 천사들은 초우주 통치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들은 막강한 메신저들, 높은 권한자들, 그리고 이름-번호 없는 자들의 상순한 삼위일체화 연관-동료들이다.

초우주들의 이들 2품천사들은 반영 영들의 자손들이며, 그러므로 반영성은 그들의 본성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그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과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안에 기원을 가지는 모든 창조체의 개개의 위상 모든 것에 반영적으로 응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단독으로 기원을 가지는 존재들과 실존개체들에는, 개인적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나, 직접적으로 반영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우주 지능 순환회로들의 실재성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비록 다른 어떤 증명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2품천사의 반영 행위들은 공동 행위자의 무한 마음의 우주적 현존에 대한 실재성을 실증하기에 아주 충분할 것이다.

제 4 장. 1차 2품천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배정된, 1차 2품천사들은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거울들이다. 초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살아있는 거울로 바뀔 수 있고 그리하여 수천 또는 수십만 광년 거리에 있는 다른 응답들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기록들은 우주들의 행위에 본질적이고, 방송들은 사용할 수 있고, 단독 그리고 다른 메신저들의 활동은 매우 도움이 되지만, 거주민이

interests of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ur colony of omniaphim on Uversa receives instructions from, and makes reports to, only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situated on conjoint executive sphere number seven in the outer ring of Paradise satellites.

3. THE SECONAPHIM

28:3.1 (307.3) The seconaphic hosts are produced by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ssigned to the headquarters of each superuniverse. There is a definite Paradise-responsive technique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these angels in groups of seven. In each seven there are always one primary, three secondary, and three tertiary seconaphim; they always personalize in this exact proportion. When seven such seconaphim are created, one, the primary, becomes attached to the service of the Ancients of Days. The three secondary angels are associated with three groups of Paradise-origin administrators in the supergovernments: the Divine Counselor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the Universal Censors. The three tertiary angels are attached to the ascendant trinitized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rulers: the Mighty Messenger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28:3.2 (307.4) These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s are the offspring of the Reflective Spirits, and therefore reflectivity is inherent in their nature. They are reflectively responsive to all of each phase of every creature of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the Paradise Creator Sons, but they are not directly reflective of the beings and entities, personal or otherwise, of sole origin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possess many evidences of the actuality of the universal intelligence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but even if we had no other proof, the reflective performances of the seconaphim would be quite sufficient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infinite mind of the Conjoint Actor.

4. THE PRIMARY SECONAPHIM

28:4.1 (307.5) The primary seconaphim, of assignment to the Ancients of Days, are living mirrors in the service of these triune rulers. Think what it means in the economy of a superuniverse to be able to turn, as it were, to a living mirror and therein to see and therewith to hear the certain responses of another being a thousand or a hundred thousand light-years distant and to do all this instantly and unerringly. Records are essential to the conduct of the universes, broadcasts are

사는 세계들과 파라다이스 사이—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중도적인 그들의 위치로부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양쪽 길을 즉시 볼 수 있고, 길들을 들을 수 있으며, 양쪽 길을 알 수 있다.

이 능력—말하자면, 만물을 듣고 보는 능력—은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들 각각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거기에서 조차 한계에 부딪힌다: 유버사로부터, 그러한 통신은 오르본톤의 세계와 우주들에 제한되며 그리고 동일한 이 반영성 기법이, 초우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각을 중앙우주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일곱 초우주들은, 개별적으로 격리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위의 권한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필요를 완전하게 정통하고 있다.

1차 2품천사들은 선천적으로 가진 본성에 의해 일곱 가지 유형의 봉사들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계층의 첫 번째 계열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영의 마음을 해석하도록 선천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동 행위자의 음성. 각 초우주마다 첫 번째 1차 2품천사 그리고 뒤이어 창조되는 그 계층에서의 매 일곱 번째 존재는 초우주 정부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와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무한한 영의 마음을 납득하고 해석하는 적응성에서의 높은 계층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 초우주들의 본부에서 큰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창조계들이 그들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달리, 초정부의 자리는 무한한 영의 특별화된 개인성구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2품천사 음성들은 그러한 본부 구체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 대표자들이 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다가온다. 참으로, 일곱 반영 영들이 거기에 있지만, 2품천사 무리의 이들 어머니들은 공동 행위자보다는 일곱 주(主) 영들에 대한 것에 더욱 참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영적이다.

2. 일곱 주(主) 영의 음성. 두 번째 1차 2품천사들과 뒤이어 창조되는 매 일곱 번째마다의 한 명은 일곱 주(主) 영들의 집단적인 본성들과 반응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임무가 배정된 일곱 반영 영들 중 어느 하나가 각 주(主) 영을 초우주 수도에서 이미 대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변은 개별적인 것이고 집합적인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오직 반영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主) 영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기에 매우 충분한, 1차 2품천사들 중 두 번째 계열인, 매우 개인적인 이 천사들의 봉사를 환영한다.

serviceable, the work of the Solitary and other messengers is very helpful, but the Ancients of Days from their position midway between the inhabited worlds and Paradise — between man and God — can instantly look both ways, hear both ways, and *know* both ways.

28.4.2 (308.1) This ability — to hear and see, as it were, all things — can be perfectly realized in the superuniverses only by the Ancients of Days and only on their respective headquarters worlds. Even there limits are encountered: From Uversa, such communication is limited to the worlds and universes of Orvonton, and while inoperative between the superuniverses, this same reflective technique keeps each one of them in close touch with the central universe and with Paradise. The seven supergovernments, though individually segregated, are thus perfectly reflective of the authority above and are wholly sympathetic, as well as perfectly conversant, with the needs below.

28.4.3 (308.2) The primary seconaphim are found to incline by inherent nature towards seven types of service, and it is befitting that the first serials of this order should be so endowed as inherently to interpret the mind of the Spirit to the Ancients of Days:

28.4.4 (308.3) 1. *The Voice of the Conjoint Actor.* In each superuniverse the first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of that order subsequently created exhibit a high order of adaptability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in the supergovernments. This is of great value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for, unlike the local creations with their Divine Ministers, the seat of a supergovernment does not have a specialized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Hence these seconaphic voice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such a capital sphere. True,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re there, but these mothers of the seconaphic hosts are less truly and automatically reflective of the Conjoint Actor tha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28.4.5 (308.4) 2. *The Voi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second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thereafter created incline towards portraying the collective natures and reac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ough each Master Spirit is already represented on a superuniverse capital by some one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of assignment, such representation is individual, not collective. Collectively, they are only reflectively present; therefore do the Master Spirits welcome the services of these highly personal angels, the second serials of the primary seconaphim, who are so competent to represent them before the

3. 창조자 아들의 음성. 무한한 영은 미가엘 계층에 해당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창조 그리고 훈련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제3의 1차 2품천사들과 뒤이은 각 일곱 번째 계열이 이 창조자 아들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뛰어난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고려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네바돈의 미가엘의 태도를 알고 싶어—실제로 알고자—하였다면, 그들은 그를 우주의 방침에 따라 호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오직 네바돈 음성들의 우두머리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요청에 따라, 기록하는 미가엘 2품천사들을 출석시킬 것이다; 바로 그 때 거기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네바돈의 주(主)아들의 음성을 감지(感知)할 것이다.

다른 어떤 아들관계의 계층도 그렇게 “반영적”일 수 없고, 어떤 다른 천사 계층도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만하게 납득하지 못하며, 나는 창조자 아들들 자신이 그것을 충분하게 납득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이 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활동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만족스럽게 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버사의 전체 역사 속에서 2품천사 음성들이 그들의 발표에 있어서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신성이, 시간의 공간을 둘러싸고 그리고 공간의 시간을 통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의, 그 어떤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너희는 여기에서 영원 주기의 기법에서의 힐끔보기, 곧 공간의 어려운 장애들을 통달하고 있는 그들의 과업 속에서 시간의 자녀를 도우려고 이제 잠시 갈라진, 영원 주기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힐끔보기를, 맨 처음 얻고 있다. 그리고 이들 현상은 반영 영들의 확립된 우주 기법에 추가되는 것이다

비록 위로는 주(主) 영들의 그리고 아래로는 창조자 아들들의 개인적 현존이 박탈되어진 것이 외견상으로는 명백하지만,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그들의 지식에 따라, 반영적 완전성과 궁극적 정확성의 조화우주 기능구조에 동조되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 구조로 인하여 모든 저들 드높여진 존재들, 개인적 현존이 거부된 그들 모두의 반영적 현존을 누릴 수 있다. 이들 수단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들에 의해 그리고 그것에 두루, 하느님은 초우주들의 본부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위로부터는 영 음성-반쪽임들을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미가엘 음성-반쪽임들을 등식화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추론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우주들의 행정-관리적 관련사들에 관한 아버지의 뜻을 추정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서로 다른 두개의 지식으로부터 하느님들 중 한 분의 뜻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명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설혹 다른 이유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초우주들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항상 세 명의 옛적으로

Ancients of Days.

28:4.6 (308.5) 3. *The Voice of the Creator Sons.* The Infinite Spirit must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creation or training of the Paradise Sons of the order of Michael, for the third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serial thereafter possess the remarkable gift of being reflective of the minds of these Creator Sons. If the Ancients of Days would like to know — really know — the attitude of Michael of Nebadon regarding some matter under consideration, they do not have to call him on the lines of space; they need only call for the Chief of Nebadon Voices, who, upon request, will present the Michael seconaphim of record; and right then and there the Ancients of Days will perceive the voice of the Master Son of Nebadon.

28:4.7 (309.1) No other order of sonship is thus “reflectible,” and no other order of angel can thus function. We do not fully understand just how this is accomplished, and I doubt very much that the Creator Sons themselves fully understand it. But of a certainty we know it works, and that it unfailingly works acceptably we also know, for in all the history of Uversa the seconaphic voices have never erred in their presentations.

28:4.8 (309.2) You are here beginning to see something of the manner in which divinity encompasses the space of time and masters the time of space. You are here obtaining one of your first fleeting glimpses of the technique of the eternity cycle, divergent for the moment to assist the children of time in their tasks of mastering the difficult handicaps of space. And these phenomena are additional to the established universe technique of the Reflective Spirits.

28:4.9 (309.3) Though apparently deprived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s above and of the Creator Sons below, the Ancients of Days have at their command living beings attuned to cosmic mechanisms of reflective perfection and ultimate precision whereby they may enjoy the reflective presence of all those exalted beings whose personal presence is denied them. By and through these means, and others unknown to you, God is potentially present on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28:4.10 (309.4) The Ancients of Days perfectly deduce the Father's will by equating the Spirit voice-flash from above and the Michael voice-flashes from below. Thus may they be unerringly certain in calculating the Father's will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s. But to deduce the will of one of the Gods from a knowledge of the other two, the three Ancients of Days must act together; two would not be able to achieve the answer. And for this reason, even were there no others, the superuniverses are always presided over by three Ancients of Days,

늘 계신이들에 의해 통할되고 있다.

4. 천사 무리의 음성. 네 번째 1차 2품천사들과 매 일곱 번째 계열은, 위로는 초(超)천사들을 그리고 아래로는 세라핌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천사들의 정서에 특정적으로 응답하는 천사들이 판명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명령하는 또는 감독하는 천사의 태도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그 어떠한 협의회에서의 숙고에 관한 것에도 즉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유란시아의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에게 반영적 이동에서의 현상들에 대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유버사로부터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날이, 너희 세계에서는 결코 단 하루도 없다, 그러나 단독 메신저에 의해 미리 경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녀는 무엇이 추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들 시간의 사명활동 영역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관심과 조언을 불러일으키는 끝없이 이어지는 사실들과 관련되는, 이러한 무의식적이고도 확실한 종류의, 따라서 편견 없는 증언들을 공급하고 있다.

5. 방송 접수자.. 오직 이 1차 2품천사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등급의 방송 메시지가 있다. 그들이 유버사의 정규 방송이 아닌 반면, 그들은 우주 통신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위로 다가오는 일정한 실제적 메시지들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반영적 통찰력에 동조시킬 목적으로 반영적 음성들의 천사들과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방송 접수자들은 다섯 번째 계열, 창조될 다섯 번째 1차 2품천사들 그리고 그 이후 매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다.

6. 운송개인성. 이들은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로부터 하보나의 외부 순환계를 향해 시간의 순례자들을 옮기는 2품천사들이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수송 무리단인데,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그들 각각의 구역들에 해당하는 세계들을 향해 바깥쪽으로 활동한다. 이 무리단은 여섯 번째 1차 2품천사들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되는 매 일곱 번째 존재들로 구성된다.

7. 예비무리단. 매우 큰 집단의 2품천사들, 일곱 번째 1차 계열들이, 분류되지 않은 임무들과 영역들의 응급 임무 배정을 위해 예비자들 안에 수용되어 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다양한 연관-동료들 중 어떤 자격으로든지 제법 잘 기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업무는 오직 긴급 사태에서만 수행된다. 그들의 평상시 업무는 특별한 임무가 배정된 천사들의 범위 안에 소속되지 않는 초우주의 일반화 된 그 임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제 5 장. 2차 2품천사

2차 계층의 2품천사들은 그들의 1차 동료들에 못지않게 반영적이다. 1차적, 2차적, 그리고 3

and not by one or even two.

28:4.11 (309.5) 4. *The Voice of the Angelic Hosts.* The fourth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serial prove to be angels peculiarly responsive to the sentiments of all orders of angels, including the supernaphim above and the seraphim below. Thus the attitude of any commanding or supervising angel is immediately available for consideration at any council of the Ancients of Days. Never a day passes on your world that the chief of seraphim on Urantia is not made conscious of the phenomenon of reflective transference, of being drawn upon from Uversa for some purpose; but unless forewarned by a Solitary Messenger, she remains wholly ignorant of what is sought and of how it is secured. Thes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constantly furnishing this sort of unconscious and certainly, therefore, unprejudiced testimony concerning the endless array of matters engaging the attention and counsel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associates.

28:4.12 (309.6) 5. *Broadcast Receivers.* There is a special class of broadcast messages which are received only by these primary seconaphim. While they are not the regular broadcasters of Uversa, they work in liaison with the angels of the reflective voices for the purpose of synchronizing the reflective vision of the Ancients of Days with certain actual messages coming in over the established circuits of universe communication. Broadcast receivers are the fifth serials, the fifth primary seconaphim to be created and every seventh one thereafter.

28:4.13 (310.1) 6. *Transport Personalities.* These are the seconaphim who carry the pilgrims of time from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o the outer circle of Havona. They are the transport corps of the superuniverses, operating inward to Paradise and outward to the worlds of their respective sectors. This corps is composed of the sixth primary seconaphim and every seventh one subsequently created.

28:4.14 (310.2) 7. *The Reserve Corps.* A very large group of seconaphim, the seventh primary serials, are held in reserve for the unclassified duties and the emergency assignments of the realms. Not being highly specialized, they can function fairly well in any of the capacities of their diverse associates, but such specialized work is undertaken only in emergencies. Their usual tasks are the performance of those generalized duties of a superuniverse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angels of specific assignment.

5. THE SECONDARY SECONAPHIM

28:5.1 (310.3) Seconaphim of the secondary order are no less reflective than their primary fellows.

차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일은 2품천사들의 경우 지위 또는 기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과정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세 집단들 모두 동일한 본질특성들을 나타낸다.

일곱 반영적 유형들을 갖는 2차 2품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조화-협동 삼위일체-기원 연관-동료들에 대한 봉사에 배치된다:

지혜의 완전자들에 대해—지혜의 음성, 철학의 혼들, 그리고 혼의 연합.

신성한 조인자들에 대해—조인의 가슴, 실존의 기쁨, 그리고 봉사의 만족.

우주 검열자들에 대해—영 식별자.

이 집단은 1차 계층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창조된다; 첫-태생은 지혜의 음성이고, 그 이후 일곱 번째가 비슷하며, 이 반영적 천사들 중 다른 여섯 유형들도 그러하다.

1. 지혜의 음성. 이 2품천사들 중 특징인들은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들, 1차 초(超)천사에 속하는 지식 보호관리자들과 영속적인 연락을 이룩한다. 특별한 반영적 봉사에 있어서 지혜의 음성은 우주들의 우주의 조화-협동된 지혜에 대한 살아있고 현재이며 충만하고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집결, 그리고 초점화구현이다. 초우주들의 주(主) 순환회로들을 도는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하여, 훌륭한 이들 존재들은 지혜의 본질을 분리시키고 받아들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상급자들인,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마음 작용의 이 보물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의 완전자들이 이 지혜의 실재적이고 기원적인 표현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대한 음성을 주었던, 높거나 낮은 기원을 가진, 바로 그 존재들을 반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버사에서, 초우주 정부의 복잡한 관련사들이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의 결정에 도달할 필요가 있게 되면, 완전의 지혜와 실천성의 지혜 둘 모두가 반드시 출현하게 되면, 지혜의 완전자들은 한 조의 지혜의 음성을 호출하며, 그들 계층의 더할 나위 없는 기술에 의해 우주들의 우주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고 순환하는 지혜에 대한 이 살아있는 접수자들을 너무나도 조화시키고 방향을 잡게 하기 때문에, 위로는 우주로부터의 신성의 지혜의 흐름과 아래로는 우주들의 높은 마음으로부터의 실용성의 지혜의 흐름이 이제 이 2품천사 음성들로부터 일어난다.

Being classed a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does not indicate a differential of status or function in the case of seconaphim; it merely denotes orders of procedure. Identical qualities are exhibited by all three groups in their activities.

28:5.2 (310.4) The seven reflective types of secondary seconaphim are assigned to the services of the co-ordinate Trinity-origin associates of the Ancients of Days as follows:

28:5.3 (310.5) To the Perfectors of Wisdom — the Voices of Wisdom, the Souls of Philosophy, and the Unions of Souls.

28:5.4 (310.6) To the Divine Counselors — the Hearts of Counsel, the Joys of Existence, and the Satisfaction of Service.

28:5.5 (310.7) To the Universal Censors — the Discerners of Spirits.

28:5.6 (310.8) Like the primary order, this group is created serially; that is, the first-born was a Voice of Wisdom, and the seventh thereafter was similar, and so with the six other types of these reflective angels.

28:5.7 (310.9) 1. *The Voice of Wisdom.* Certain of these seconaphim are in perpetual liaison with the living libraries of Paradise, the custodians of knowledge belonging to the primary supernaphim. In specialized reflective service the Voices of Wisdom are living, current, replete, and thoroughly reliable concentrations and focalizations of the co-ordinated wisdo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the well-nigh infinite volume of information circulating on the master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s, these superb beings are so reflective and selective, so sensitive, as to be able to segregate and receive the essence of wisdom and unerringly to transmit these jewels of mentation to their superiors,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they so function that the Perfectors of Wisdom not only hear the actual and original expressions of this wisdom but also reflectively see the very beings, of high or lowly origin, who gave voice to it.

28:5.8 (310.10) It is written, “If any man lack wisdom, let him ask.” On Uversa,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arrive at the decisions of wisdom in the perplexing situations of the complex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when both the wisdom of perfection and of practicability must be forthcoming, then do the Perfectors of Wisdom summon a battery of the Voices of Wisdom and, by the consummate skill of their order, so attune and directionize these living receivers of the enminded and circulating wisdo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at presently, from these seconaphic voices, there ensues a stream of the wisdom of divinity from the universe above and a flood of the wisdom of practicality from the higher minds of the universes below.

만일 이 두 지혜 해석의 조화에 관하여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상소가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절차들의 적절한 혼합에 대한 경우처럼 즉시 통치한다. 만일 반역이 잘 일어나는 영역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것의 확실성에 대한 경우처럼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검열자들에게 상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 식별자들과 함께 “영의 방법”이 그 충고자를 행동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와 같이 즉각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 시대들의 지혜와 순간의 지성은, 그들이 주시하는 앞에 열려진 책처럼, 그렇게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영원히 함께 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초우주 정부들의 경영을 책임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만 어렵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활동행위들의 광대함과 이해력은 유한 개념을 훨씬 초월한다. 내가 반복하였듯이, 너희가 유버사에서 지혜의 성전의 특별한 접수실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우주들의 행성간 통신의, 복잡성의 완전성에 의해 그리고 작업의 정확성에 의해 감동될 것이다. 너희는 신성한 지혜와 하느님들의 선함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설명해 온 것과 똑같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2. 철학의 혼. 이 경이로운 선생들 역시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배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별다르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철학의 주(主)들과 초점적 동조를 이루면서 남아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너희의 유한한 그리고 물질적인 자신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대한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걸어 올라가, 신성의 지혜와 파라다이스의 철학의 반영을 인식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만일 이 완전의 철학을 “육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희석시켜 비교적 낮은 세계들의 낮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리고 그들에 의해 동화되도록 하려면, 이들 살아있는 거울들은 또 다른 세계 혹은 우주의 표준과 필요를 반영하려고, 그들의 얼굴을 아래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기법들에 의해, 지혜의 완전자들은 고려되는 민족들 그리고 세계들의 실제적 필요와 실제적 지위에 대한 결정들과 충고들을 적응시키며, 그들은 항상 신성한 조언자들과 우주 검열자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행위의 숭고한 충만성은 나의 이해력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3. 혼들의 연합. 지혜의 완전자들에게 배정된 삼원적 참모진을 완성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들에 대한 이상들 그리고 지위들의 이 반영자들이다. 체험과 융통성의 더할 나위 없는 지혜의 훈련을 요구하는 우주 안의 모든 문제들 중에, 어느 것도

28.5.9 (311.1) If confusion arises regarding the harmonization of these two versions of wisdom, immediate appeal is made to the Divine Counselors, who forthwith rule as to the proper combination of procedures. If there is any doubt as to the authenticity of something coming in from realms where rebellion has been rife, appeal is made to the Censors, who, with their Discerners of Spirits, are able to rule immediately as to “what manner of spirit” actuated the adviser. So are the wisdom of the ages and the intellect of the moment ever present with the Ancients of Days, like an open book before their beneficent gaze.

28.5.10 (311.2) You can just faintly comprehend what all this means to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The immensity an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se transactions are quite beyond finite conception. When you stand, as I repeatedly have, in the special receiving chambers of the temple of wisdom on Uversa and see all this in actual operation, you will be moved to adoration by the perfection of the complexity, and by the surety of the working, of the interplanetary communications of the universes. You will pay homage to the divine wisdom and goodness of the Gods, who plan and execute with such superb technique. And these things actually happen just as I have portrayed them.

28.5.11 (311.3) 2. *The Soul of Philosophy.* These wonderful teachers are also attached to the Perfectors of Wisdom and, when not otherwise directionized, remain in focal synchrony with the masters of philosophy on Paradise. Think of stepping up to a huge living mirror, as it were, but instead of beholding the likeness of your finite and material self, of perceiving a reflection of the wisdom of divinity and the philosophy of Paradise. And if it becomes desirable to “incarnate” this philosophy of perfection, so to dilute it as to make it practical of application to, and assimilation by, the lowly peoples of the lower worlds, these living mirrors have only to turn their faces downward to reflect the standards and needs of another world or universe.

28.5.12 (311.4) By these very techniques do the Perfectors of Wisdom adap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real needs and actual status of the peoples and worlds under consideration, and always do they act in concert with the Divine Counselors and the Universal Censors. But the sublime repleteness of these transactions is beyond even my ability to comprehend.

28.5.13 (311.5) 3. *The Union of Souls.* Completing the triune staff of attachment to the Perfectors of Wisdom, are these reflectors of the ideals and status of ethical relationships. Of all the problems in the universe requiring an exercise of the

지능 존재들의 관계들 그리고 관계적-연합들로부터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상업과 무역, 친구관계와 결혼의 인간적 관계적-연합의 경우, 또는 천사 무리와 연락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든지, 화해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만일 커지고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주의 순조로운 작용을 망칠 정도로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드는 작은 마찰들, 사소한 오해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의 완전자들은 그들의 계층의 현명한 체험을 전체 초우주를 위한 “화해의 기름”이 될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초우주들의 이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반영적 연관-동료들, 혼의 연합에 의해 훌륭한 후원을 받는데, 그들은 우주의 상태에 관한 현재적 정보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 난처한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조절이 되는 파라다이스 이상을 동시적으로 묘사한다. 다른 곳에서 특별하게 지도되지 않을 때에는, 이 2품천사들이 파라다이스에 있는 윤리 통역자들과 반영적 연락을 이루면서 남아 있다.

오르본톤 전체의 협동-작업을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이다.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협동작업이다. 완전의 구체들은 다른 존재들과 일하는 이 기술에 통달해 온 자들에 의해 길들여진다. 우주 안에서 홀로 일하는 일꾼이 할 임무는 거의 없다. 너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희 동료들과의 연관이 일시적으로 없을 때는 너희는 더욱 고독해질 것이다.

4. 조언의 가슴. 이것은 신성한 조언자들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 반영적 천재들 중 첫 번째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2품천사들은 공간의 사실들에 점유되어 있는데, 시간의 순환회로들 안에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위해 선택된다. 특별히 그들은 초(超)천사 정보 조화-협동자들을 반영하지만, 높은 계급이든지 낮은 계급이든지 모든 존재들의 조언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충고 또는 결정에 소집될 때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언의 가슴의 합주곡을 요청하며, 이윽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초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마음들의 조화-협동된 지혜와 조언을 실재적으로 종합한 것이며, 그것은 모두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에까지 속한 높은 마음들의 조언에 비추어서 검열되고 고쳐진 것이다.

5. 실존의 기쁨. 본성적으로 이 존재들은 위로는 초(超)천사의 조화감독자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일정한 세라핌천사들에게 반영적으로 동조되어 있지만, 이 흥미로운 집단이 실재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주요 활동들은 다양한 계층의 천사 무리들과 비교적 낮은 의지적 창조체들 가운데에 기쁨의 반응들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된다. 신성한 조언자

consummate wisdom of experience and adaptability, none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arising out of the relationships and associations of intelligent beings. Whether in human associations of commerce and trade, friendship and marriage, or in the liaisons of the angelic hosts, there continue to arise petty frictions, minor misunderstandings too trivial even to engage the attention of conciliators but sufficiently irritating and disturbing to mar the smooth working of the universe if they were allowed to multiply and continue. Therefore do the Perfectors of Wisdom make available the wise experience of their order as the “oil of reconciliation” for an entire superuniverse. In all this work these wise men of the superuniverses are ably seconded by their reflective associates, the Unions of Souls, who make available curr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verse and concurrently portray the Paradise ideal of the best adjustment of these perplexing problems. When not specifically directionized elsewhere, these seconaphim remain in reflective liaison with the interpreters of ethics on Paradise.

28:5.14 (312.1) These are the angels who foster and promote the teamwork of all Orvonton.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to be learned during your mortal career is *teamwork*. The spheres of perfection are manned by those who have mastered this art of working with other beings. Few are the duties in the universe for the lone servant. The higher you ascend, the more lonely you become when temporarily without the association of your fellows.

28:5.15 (312.2) 4. *The Heart of Counsel*. This is the first group of these reflective geniuses to be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ivine Counselors. Seconaphim of this type are in possession of the facts of space, being selective for such data in the circuits of time. Especially are they reflective of the superaphic intelligence co-ordinators, but they are also selectively reflective of the counsel of all beings, whether of high or low estate. Whenever the Divine Counselors are called upon for important advice or decisions, they immediately requisition an ensemble of the Hearts of Counsel, and presently there is handed down a ruling which actually incorporates the co-ordinated wisdom and advice of the most competent minds of the entire superuniverse, all of which has been censored and revised in the light of the counsel of the high minds of Havona and even of Paradise.

28:5.16 (312.3) 5. *The Joy of Existence*. By nature these beings are reflectively attuned to the superaphic harmony supervisors above and to certain of the seraphim below,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just what the members of this interesting group really do. Their principal activities are directed toward promoting reactions of joy among the various orders of the angelic hosts and the

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들에 대하여, 특별한 기쁨 습득을 위해 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복귀 지도자들과의 협동에 있어서, 그들은 기쁨 집배소로서 기능하는데,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영역들의 즐거움 반응들을 증진시키고자, 필사자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초(超)유머를 발전시키고자 애쓴다. 그들은 모든 가외(加外)적 영향들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지 실존 안에 선천적으로 기쁨이 들어 있음을 실증하고자 노력한다; 원시인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주입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다. 비교적 높은 영 개인성들과 천사들은 이 교육적 수고에 더 빨리 응답한다.

6. 봉사의 만족. 이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에서의 행위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높이 반영하며, 실존의 기쁨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으로부터 기인되는 만족감들을 증강시키고자 분투한다. 그들은 사심-없는 봉사, 진리의 왕국의 확장을 위한 봉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연기된 보상들을 조명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신성한 조연자들은, 이 계층이 배정된 그들에게, 영적 봉사로부터 기인되는 은혜를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평범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기에 가장 좋은 자들의 업적을 활용함으로써, 이 2품천사들은 초우주 안에서 헌신된 봉사의 본질특성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어느 세계라도 다른 세계, 특별히 가장 우수한 세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유포시킴으로써 형제우애에서의 경쟁적인 영이 효력 있게 사용된다. 상쾌하고도 건전한 경쟁이 심지어는 세라핌천사 무리 중에서도 권장된다.

7. 영 식별자. 두 번째 하보나 순환계의 조연자와 충고자와 이 반영적 천사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연락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주 검열자들에게 배속된 유일한 2품천사들이지만, 그들의 전체 동료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전문화되어 있을 것이다. 정보의 근원 또는 통로와는 상관없이, 손에 권 증거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반영적 정밀조사에 의존될 때에는, 이 식별자들이 참된 동기와 실제적인 목적 그리고 그것이 기원된 실제 본질에 관하여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이 천사들의 장엄한 기능에 감탄하는데, 그들은 초점이 맞추어진 어떤 폭로에 관여된 모든 개별존재의 실제적인 도덕적 그리고 영적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영 식별자들은 선천적인 “영적 통찰력”의 덕분으로 이 까다로운 봉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인간 마음에게 생각을 옮겨주려고 애쓰면서 어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도 된다면, 그것은 이들 반영적인 천사들이 것처럼 직관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리고 어김없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검열자들이 이들 발표를 볼 때, 그들은 반영된 개별존재의 적나라한 혼과 얼굴을 마주할

lower will creatures. The Divine Counselors, to whom they are attached, seldom use them for specific joy finding. In a more general manner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version directors, they function as joy clearinghouses, seeking to upstep the pleasure reactions of the realms while trying to improve the humor taste, to develop a superhumor among mortals and angels. They endeavor to demonstrate that there is inherent joy in freewill existence, independent of all extraneous influences; and they are right, although they meet with great difficulty in inculcating this truth in the minds of primitive men. The higher spirit personalities and the angels are more quickly responsive to these educational efforts.

28:5.17 (312.4) 6. *The Satisfaction of Service.* These angels are highly reflective of the attitude of the directors of conduct on Paradise, and functioning much as do the Joys of Existence, they strive to enhance the value of service and to augment the satisfactions to be derived therefrom. They have done much to illuminate the deferred rewards inherent in unselfish service, service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truth.

28:5.18 (312.5) The Divine Counselors, to whom this order is attached, utilize them to reflect from one world to another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spiritual service. And by using the performances of the best to inspire and encourage the mediocre, these seconaphim contribute immensely to the quality of devoted service in the superuniverses. Effective use is made of the fraternal competitive spirit by circulating to any one world information about what the others, particularly the best, are doing. A refreshing and wholesome rivalry is promoted even among the seraphic hosts.

28:5.19 (313.1) 7. *The Discerner of Spirits.* A special liaison exists between the counselors and advisers of the second Havona circle and these reflective angels. They are the only seconaphim attached to the Universal Censors but are probably the most uniquely specialized of all their fellows. Regardless of the source or channel of information, no matter how meager the evidence at hand, when it is subjected to their reflective scrutiny, these discerners will forthwith inform us as to the true motive, the actual purpose, and the real nature of its origin. I marvel at the superb functioning of these angels, who so unerringly reflect the actual moral and spiritual character of any individual concerned in a focal exposure.

28:5.20 (313.2) The Discerners of Spirits carry on these intricate services by virtue of inherent “spiritual insight,” if I may use such words in an endeavor to convey to the human mind the thought that these reflective angels thus function intuitively, inherently, and unerringly. When the Universal Censors behold these presentations, they are face to face with the naked soul of the reflected

것이다; 묘사에 대한 바로 이 확실성과 완전성은 검열자들이 정의로운 심판관들로서 어떻게 항상 그토록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식별자들은 유버사로부터 떨어진 어떤 임무의 경우든지 검열자들을 항상 따라가며, 그들은 그들의 유버사 본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들 안에서도 똑같이 효력이 있다.

나는 영 세계의 이들 모든 활동행위들이 실제적이라는 것, 우주적 권역들의 변경할 수 없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확립된 관례에 따라, 활동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장한다. 새롭게 창조된 모든 계층의 존재들은, 생명의 입김을 받는 즉시, 순간적으로 높은 곳에 반영되어진다; 창조체 본성과 잠재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묘사가 초우주 본부에 섬광처럼 전해진다. 그래서 검열자들은, 식별자들에 의해서, 공간의 세계들에서 “어떤 영이” 지금까지 태어났는지를 충분히 인지한다.

필사 사람의 경우에도 그리하다 즉: 구원자별의 어머니 영은 너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세계에 있는 성령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그 신성한 영이 너희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2품천사 식별자들이 너희에 대한 영의 지식에 관하여 영과 함께 숙고할 때마다 언제든지 즉각 유효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아버지 단편들의 지식과 계획들이 반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식별자들은 조절자들의 현존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그리고 검열자들은 그들을 신성이라고 선언함), 그들은 신비 감시자들의 열심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제 6 장. 3차 2품천사

그들의 동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천사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일곱 반영적 유형들로 창조되지만, 이 유형들은 초우주 행정-관리자의 분리된 봉사들에 개별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3차 2품천사들 전체는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들에게 집단적으로 배정되고, 상승하는 이 아들들은 그들을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막강한 메신저들은 3차 유형들 중 어떤 것이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며, 그들의 조화-협동자들인 높은 권한자들과 이름-번호 없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3차 2품천사들의 일곱 가지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원의 의의(意義). 초우주 정부의 상승한 삼위일체화 아들들에게는 어떤 개별 종족 또는 세계든지 그 기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다루는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기원의 의의(意義).는 영역의 살아있는 창조체들의 조화우주 진보를 위한 우리들의 계획 전체 안에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모든 관계들과 윤리의 적용은 기원되는 근본적 사실들로부터 나온다. 기원은 하느님들의 상호 관계적 반응의 기초이다. 공동 행위자는 항상 “그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는지를 주목한다.”

individual; and this very certainty and perfection of portraiture in part explains why the Censors can always function so justly as righteous judges. The discerners always accompany the Censors on any mission away from Uversa, and they are just as effective out in the universes as at their Uversa headquarters.

28:5.21 (313.3) I assure you that all these transactions of the spirit world are real, that they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usages and in harmony with the immutable laws of the universal domains. The beings of every newly created order, immediately upon receiving the breath of life, are instantly reflected on high; a living portrayal of the creature nature and potential is flashed to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us, by means of the discerners, are the Censors made fully cognizant of exactly “what manner of spirit” has been born on the worlds of space.

28:5.22 (313.4) So it is with mortal man: The Mother Spirit of Salvington knows you fully, for the Holy Spirit on your world “searches all things,” and whatsoever the divine Spirit knows of you is immediately available whenever the secoraphic discerners reflect with the Spirit concerning the Spirit’s knowledge of you. It should, however, be mentioned that the knowledge and plans of the Father fragments are not reflectible. The discerners can and do reflect the presence of the Adjusters (and the Censors pronounce them divine), but they cannot decipher the content of the mindedness of the Mystery Monitors.

6. THE TERTIARY SECONAPHIM

28:6.1 (313.5) In the same manner as their fellows, these angels are created serially and in seven reflective types, but these types are not assigned individually to the separate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All tertiary seconaphim are collectively assigned to the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and these ascendant sons use them interchangeably; that is, the Mighty Messengers can and do utilize any of the tertiary types, and so do their co-ordinates, Those High in Authority and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These seven types of tertiary seconaphim are:

28:6.2 (314.1) 1. *The Significance of Origins.* The ascendant Trinitized Sons of a superuniverse government are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dealing with all issues growing out of the origin of any individual, race, or world; and the significance of origin is the paramount question in all our plans for the cosmic advancement of the living creatures of the realm. All relationships and the application of ethics grow out of the fundamental facts of origin. Origin is the basis of the relational reaction of the Gods. Always does the Conjoint Actor “take note

비교적 높은 하강하는 존재들에 있어서, 기원은 단순히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천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존재들의 경우에는, 우주적 관련사들이 중요하여—따라서 중앙 우주 안에 있거나 초우주의 전체 영역에 두루 있거나 그 어떤 존재의 탄생에 관하여 요구되는 그 어떤 것도 즉시 묘사할 수 있는 반영하는 2품천사들의 계열을 우리의 활용에 배치할 만한 가치가 있는—그러한 우주적 관련사들의 변곡점과 동등하게 치명적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의 본성과 정황은 항상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기원의 의의(意義)들은 일곱 초우주들에 거주하는 광대한 존재들의 무리—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살아있는 준비된-참고 계보들이다. 그들은 그들 각각의 초우주들에 속한 어떤 세계든지 그 위에 있는 모든 개별존재의 현재적 실재 지위와 조상 요소들에 대한 최신의, 충분한, 그리고 믿을만한 평가서를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계산은 항상 분(分) 단위까지 되어 있다.

2. 자비의 기억. 이들은, 기원의 의의(意義)들에 대한 묘사에 의해 계시(啓示)된 바와 같이, 영역들의 지위에 정의로움의 공의(公義)를 적용시키는 임무에 있어서 무한한 영의 대행기관들의 섬세한 보살핌에 의해 개별존재들과 종족들에게 확장되어 온 실재적이고 충만하며 충분한, 살아있는 기록들이다. 자비의 기억은 하느님의 아들들에 의해 확립된 구원 준비에서의 그들 자산에 대응하여 내려놓아야 할 자비의 자녀들의 도덕적 채무—그들의 영적 부채들—를 드러낸다. 아버지의 실존-이전(以前) 자비를 계시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들은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을 확정한다. 그리고 나서, 기원의 의의(意義)들의 조사에 따라, 자비에서의 신용, 신성한 시민권을 실제로 바라는 각각의 혼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비에서의 신용 그리고 충분한 비율의 신용이 각 이성적 창조체의 생존을 위해 확립된다.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試算表), 영역들의 초자연적 무리들에 대한 너희 계정의 현재적 대차대조표이다. 이들은 끝나지 않은 삶에 대한 각 개별존재의 권리가 판결을 받게 될 때 유버사의 법정 증언으로 읽혀지는 자비 직무의 살아있는 기록들인데, 그 때에는 “보좌들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늘 계신이가 권좌에 앉는다. 유버사의 방송이 반포되고 그들 앞으로부터 나아오며; 수 천 명이 그들에게 시중들고, 수 천 명의 수 천 배가 넘는 많은 숫자가 그들 앞에 선다. 심판이 내려지고, 책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열려 있는 책들은 초우주들의 3차 2품천사들의 살아있는 기록들이다. 만일에 그것들이 요구된다면, 자비의 기억들의 증언을 정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들이 정리 보관된다.

of the man, in what manner he was born.”

28:6.3 (314.2) With the higher descendant beings, origin is simply a fact to be ascertained; but with the ascending beings, including the lower orders of angels,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origin are not always so clear, though of equally vital importance at almost every turn of universe affairs — hence the value of having at our disposal a series of reflective seconaphim who can instantly portray anything required respecting the genesis of any being in either the central universe or throughout the entire realm of a superuniverse.

28:6.4 (314.3) The Significances of Origins are the living ready-reference genealogies of the vast hosts of beings — men, angels, and others — who inhabit the seven superuniverses. They are always ready to supply their superiors with an up-to-date, replete, and trustworthy estimate of the ancestral factors and the current actual status of any individual on any world of their respective superuniverses; and their computation of possessed facts is always up to the minute.

28:6.5 (314.4) 2. *The Memory of Mercy.* These are the actual, full and replete, living records of the mercy which has been extended to individuals and races by the tender ministrations of the instrument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mission of adapting the justice of righteousness to the status of the realms, as disclosed by the portrayals of the Significance of Origins. The Memory of Mercy discloses the moral debt of the children of mercy — their spiritual liabilities — to be set down against their assets of the saving provision established by the Sons of God. In revealing the Father's pre-existent mercy, the Sons of God establish the necessary credit to insure the survival of all. And then,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of the Significance of Origins, a mercy credit is established for the survival of each rational creature, a credit of lavish proportions and one of sufficient grace to insure the survival of every soul who really desires divine citizenship.

28:6.6 (314.5) The Memory of Mercy is a living trial balance, a current statement of your account with the supernatural forces of the realms. These are the living records of mercy ministration which are read into the testimony of the courts of Uversa when each individual's right to unending life comes up for adjudication, when “thrones are cast up and the Ancients of Days are seated. The broadcasts of Uversa issue and come forth from before them; thousands upon thousands minister to them, and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stand before them. The judgment is set, and the books are opened.” And the books which are opened on such a momentous occasion are the living records of the tertiary seconaphim of the superuniverses. The formal records are on file to corroborate the

자비의 기억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참을성 많은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확립된 구원하는 신용이 충분히 그리고 신실하게 지불되어 왔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비가 다 소모되면, 그 “기억”이 그것의 고갈을 그로서 증언하면, 공의(公義)가 널리 퍼져 지배하고 정의(正義)가 선포된다. 자비는 그것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끼어들어 떠밀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비가 시간의 끈질긴 반역자들의 발길아래에서 짓밟혀야하는 선물이 아니다. 자비는 그와 같이 귀중하고 값지게 증여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개별존재가 끌어내어 사용하는 신용들은, 너희가 만일 목적에서의 진지함과 가슴에서의 정직함이 있다면, 항상 그 예비된 비축량을 고갈시키는 너희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자비 반영자들은, 그들의 3차 연관-동료들과 함께, 상승하는 창조체들에 대한 훈련을 포함하여, 수많은 초우주 사명활동에 참여한다. 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 기원의 의의(意義)들은 이 상승자들에게 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러한 훈련 이후에는, 자비의 기억들이 어떻게 정말로 자비로울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친다. 자비라는 봉사의 영 기법들이 너희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희는 자비가 성장의 본질특성임을 이제라도 납득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처음에는 바르고, 다음에는 공평하고, 그 다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친절하게 되면서 그로서 개인성 만족이라는 커다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실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택하여 너희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그 기초 위에서, 너희는 그 다음 걸음을 내딛어 정말로 자비를 보일 수 있다; 너희는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자비를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단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참된 자비가 존재할 수 없다. 후원이나 겸양 또는 자선—심지어는 연민의 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비는 아니다. 참된 자비는 집단에 대한 납득, 상호적 존중, 형제우애에서의 동료관계, 영적 교체, 그리고 신성한 조화에 대하여 선행하는 이들 보조들이 아름다운 절정을 이룸으로서 오직 나올 수 있다.

3. 시간의 의미. 시간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의 하나의 우주 자질이다; 그것은 모든 지능 존재들에게 위임된 “하나의 재능”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생존을 보증할만한 시간을 갖고 있다; 시간은 그것이 무시됨으로써 묻힐 때에만, 너희 혼의 생존으로 보증하도록 그것을 활용하기에 실패할 때에만 치명적으로 낭비된다.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어떤 존재의 시간을 증진시키기에 실패하는 것이 치명적인 형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상승하는 그의 여행에 있어서 시간의 순례자들을 지체시킬 뿐이다. 만일 생존이 획득된다면, 다른 모든 손실들은 만회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임무배정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의 조언은 매우 귀중하다. 시간은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이쪽 편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치명적인 요소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 앞에서의 최후 심

testimony of the Memories of Mercy if they are required.

28:6.7 (314.6) The Memory of Mercy must show that the saving credit established by the Sons of God has been fully and faithfully paid out in the loving ministry of the patient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But when mercy is exhausted, when the “memory” thereof testifies to its depletion, then does justice prevail and righteousness decree. For mercy is not to be thrust upon those who despise it; mercy is not a gift to be trampled under foot by the persistent rebels of time. Nevertheless, though mercy is thus precious and dearly bestowed, your individual drawing credits are always far in excess of your ability to exhaust the reserve if you are sincere of purpose and honest of heart.

28:6.8 (315.1) The mercy reflectors, with their tertiary associates, engage in numerous superuniverse ministries, including the teaching of the ascending creatures. Among many other things the Significances of Origins teach these ascenders how to apply spirit ethics, and following such training, the Memories of Mercy teach them how to be truly merciful. While the spirit techniques of mercy ministry are beyond your concept, you should even now understand that mercy is a quality of growth. You should realize that there is a great reward of personal satisfaction in being first just, next fair, then patient, then kind. And then, on that foundation, if you choose and have it in your heart, you can take the next step and really show mercy; but you cannot exhibit mercy in and of itself. These steps must be traversed; otherwise there can be no genuine mercy. There may be patronage, condescension, or charity — even pity — but not mercy. True mercy comes only as the beautiful climax to these preceding adjuncts to group understanding, mutual appreciation, fraternal fellowship, spiritual communion, and divine harmony.

28:6.9 (315.2) 3. *The Import of Time.* Time is the one universal endowment of all will creatures; it is the “one talent” intrusted to all intelligent beings. You all have time in which to insure your survival; and time is fatally squandered only when it is buried in neglect, when you fail so to utilize it as to make certain the survival of your soul. Failure to improve one’s time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does not impose fatal penalties; it merely retards the pilgrim of time in his journey of ascent. If survival is gained, all other losses can be retrieved.

28:6.10 (315.3) In the assignment of trusts the counsel of the Imports of Time is invaluable. Time is a vital factor in everything this side of Havona and Paradise. In the final judgment before the

판에 있어서, 시간은 증거의 한 요소이다. 시간의 의미들은 결정을 내리기에, 선택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을 모든 피고인이 이미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언을 항상 잘 제공해야만 한다.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들은 어떤 떠맡은 일이든지 그것을 완성하기에 필요하게 될 시간의 요소를 묘사하며, 그들은 살아있는 다른 계층들의 후란달랑크들 그리고 크로놀덱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표들로서 믿을만하다. 하느님들은 미리 보고, 따라서 미리 알지만; 시간의 우주들의 상승하는 권한자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시간의 의미들과 상의해야만 한다.

너희는 맨션세계들에서 이 존재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것의 긍정적 채용인 활동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 활용인 휴식의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너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유익한 활용에 대해 거기에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두 가지 활용이 모두 중요하다.

4. 신뢰의 엄숙. 신뢰는 의지적 창조체들에 대한 결정적 시험이다. 신뢰감 발산은 자아-정복, 곧 성격에 대한 참된 측정이다. 이 2품천사들은 초우주들의 경제에서 이중의 목적을 성취 한다: 그들은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에게 신용의 의무와 신성함 그리고 엄숙함의 의미를 묘사한다. 동시에 그들은 지배하는 권한자들에게 신임 또는 신뢰를 위한 모든 후보자의 정확한 신뢰가치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너희는 성격을 읽고 특별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스꽝스럽게 시험을 치르지만, 유버사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일들을 완전함 안에서 행한다. 이 2품천사들은 오치없는 성격 평가의 살아있는 저울로 신뢰감 발산의 무게를 재며, 그들이 너희를 다 검사한 후에, 우리는 책임을 이행하고 신임을 받고 임무들을 완수할 만한 너희의 능력의 한계들을 알기 위하여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신뢰감 발산의 자산은 가능한 불이행 또는 배반에 속하는 너희의 부채와 나란히 분명하게 놓여진다.

너희의 성격이 이들 추가된 임무들을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너희를 증강된 신뢰로 진보시키는 것이 너희 상급자들의 계획이지만, 개별존재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은 오직 재난을 초래하고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책임을 사람 또는 천사에게 시기상조로 감당케 하는 오류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개별존재들의 신뢰 수용력에 대한 이들 틀릴수가 없는 추산정자들의 사명활동을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이 2품천사들은 높은 권한자들을 항상 대동하며, 이 집행자들은 그들의 후보자들이 2품천사 저울에 달리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선언될 때까지 임무배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5. 봉사의 고결. 봉사의 특권은 신뢰감 발산의 발견에 즉각적으로 뒤따른다. 너희 자신의 비

Ancients of Days, time is an element of evidence. The Imports of Time must always afford testimony to show that every defendant has had ample time for making decisions, achieving choice.

28:6.11 (315.4) These time evaluators are also the secret of prophecy; they portray the element of time which will be required in the completion of any undertaking, and they are just as dependable as indicators as are the frandalanks and chronoldeks of other living orders. The Gods foresee, hence foreknow; but the ascendant authorities of the universes of time must consult the Imports of Time to be able to forecast events of the future.

28:6.12 (315.5) You will first encounter these beings on the mansion worlds, and they will there instruct you in the advantageous use of that which you call “time,” both in its positive employment, work, and in its negative utilization, rest. Both uses of time are important.

28:6.13 (315.6) 4. *The Solemnity of Trust.* Trust is the crucial test of will creatures. Trustworthiness is the true measure of self-mastery, character. These seconaphim accomplish a double purpose in the economy of the superuniverses: They portray to all will creatures the sense of the obligation, sacredness, and solemnity of trust. At the same time they unerringly refl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the exact trustworthiness of any candidate for confidence or trust.

28:6.14 (316.1) On Urantia, you grotesquely essay to read character and to estimate specific abilities, but on Uversa we actually do these things in perfection. These seconaphim weigh trustworthiness in the living scales of unerring character appraisal, and when they have looked at you, we have only to look at them to know the limitations of your ability to discharge responsibility, execute trust, and fulfill missions. Your assets of trustworthiness are clearly set forth alongside your liabilities of possible default or betrayal.

28:6.15 (316.2) It is the plan of your superiors to advance you by augmented trusts just as fast as your character is sufficiently developed to gracefully bear these added responsibilities, but to overload the individual only courts disaster and insures disappointment. And the mistake of placing responsibility prematurely upon either man or angel may be avoided by utilizing the ministry of these infallible estimators of the trust capacity of the individuals of time and space. These seconaphim ever accompany Those High in Authority, and never do these executives make assignments until their candidates have been weighed in the seconaphic balances and pronounced “not wanting.”

28:6.16 (316.3) 5. *The Sanctity of Service.* The privilege of service immediately follows the

(非)-신뢰감 발산, 신뢰의 엄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의 너희의 수용력 부족 이외에는, 너희와 증가되는 봉사를 위한 기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봉사—목적적 봉사, 노예적이 아닌—는 가장 고상한 만족감을 생기게 하며 가장 신성한 존엄성을 나타낸다. 봉사—더 많은 봉사, 증가된 봉사, 어려운 봉사, 모험적인 봉사, 그리고 마침내는 신성하고 완전한 봉사—는 시간의 목표와 공간의 목적지이다. 그러나 시간의 운행 주기들은 진보의 봉사 주기들과 영원히 교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봉사 이후에는 영원의 초(超)봉사가 따라온다. 영원의 봉사 기간 동안 너희가 시간의 활동을 추억하듯이, 시간의 활동을 하는 동안 너희는 영원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의 경제는 받아들임과 내보냄에 기초를 둔다; 영원한 생애에 두루 너희는 무위(無爲)의 단조로움이나 또는 개인성의 침체를 결코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진보는 선천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고, 향상은 움직임을 위한 신성한 수용능력으로부터 자라나오며, 성취는 상상력이 있는 모험여행에서의 소산(所産)이다. 그러나 성취를 위한 이 수용능력에 선천적인 것은 윤리에서의 책임, 그 세계와 우주가 서로 다른 많은 유형의 존재들로 채워져 있음을 인지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이다. 너희 자신을 포함하는, 이 장엄한 창조의 모든 것이, 너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우주는 자기중심적인 우주가 아니다. 하느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선언했고, 너희 주(主)아들은 “너희 중에서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봉사든지 그것의 실제 본성은, 천사가 하든 사람이 하든, 이들 2품천사의 봉사를 나타내는 얼굴인 봉사의 고결 안에서 충분히 계시된다. 참된 동기와 숨겨진 동기의 충분한 분석이 분명하게 보여 진다. 이들 천사들은 정말로 우주에서 마음을 읽는 자, 가슴 속을 탐색하는 자, 그리고 혼을 계시하는 자들이다. 필사자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감추려고 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들 높은 2품 천사들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고 천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동기들을 폭로한다.

6과 7. 위대함의 비밀과 선(善)의 혼. 순례자들이 시간의 의미를 자각해 왔기 때문에, 그 길은 신뢰의 엄숙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봉사의 고결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것들이 위대함의 도덕적 요소들인 반면, 거기에는 또한 위대함의 비밀들도 있다. 위대함에 대한 영적 시험들이 적용될 때, 도덕적 요소들은 무시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동료들의 복지를 위한 사욕 없는 수고 속에 계시되는 사심-없음에서의 본질특성, 특별히 빈궁하고 고뇌 속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 그것이 행성에서의 위대함의 실제 척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의 위대함의 현시활동은 자아-통제의 표현이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도시를 장악하거나” “어

discovery of trustworthiness. Nothing can stand between you and opportunity for increased service except your own untrustworthiness, your lack of capacity for appreciation of the solemnity of trust.

28:6.17 (316.4) Service — purposeful service, not slavery — is productive of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is expressive of the divinest dignity. Service — more service, increased service, difficult service, adventurous service, and at last divine and perfect service — is the goal of time and the destination of space. But ever will the play cycles of time alternate with the service cycles of progress. And after the service of time there follows the superservice of eternity. During the play of time you should envision the work of eternity, even as you will, during the service of eternity, reminisce the play of time.

28:6.18 (316.5) The universal economy is based on intake and output; throughout the eternal career you will never encounter monotony of inaction or stagnation of personality. Progress is made possible by inherent motion, advancement grows out of the divine capacity for action, and achievement is the child of imaginative adventure. But inherent in this capacity for achiev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ethics, the necessity for recognizing that the world and the universe are filled with a multitude of differing types of beings. All of this magnificent creation, *including yourself*, was not made just for you. This is not an egocentric universe. The Gods have decree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nd said your Master Son,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let him be server of all.”

28:6.19 (316.6) The real nature of any service, be it rendered by man or angel, is fully revealed in the faces of these seeraphic service indicators, the Sanctities of Service. The full analysis of the true and of the hidden motives is clearly shown. These angels are indeed the mind readers, heart searchers, and soul revealers of the universe. Mortals may employ words to conceal their thoughts, but these high seconaphim lay bare the deep motives of the human heart and of the angelic mind.

28:6.20 (317.1) 6 and 7. *The Secret of Greatness and the Soul of Goodness.* The ascending pilgrims having awakened to the import of time, the way is prepar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lemnity of trust and for the appreciation of the sanctity of service. While these are the moral elements of greatness, there are also secrets of greatness. When the spiritual tests of greatness are applied, the moral elements are not disregarded, but the quality of unselfishness revealed in disinterested labor for the welfare of one's earthly fellows, particularly worthy beings in need and in distress, that is the real *measure* of planetary greatness. And the *manifestation* of greatness on a world like Urantia

떤 국가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혀를 억누르는” 자이다.

위대함은 신성과 동의어이다. 하느님은 최극으로 위대하고 선하시다. 위대함과 선함은 간단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까지나 하나를 이룬다. 이 진리는 위대함의 비밀과 선(善)의 혼의 반영적 상호의존에 의해 글자 그대로 그리고 현저하게 설명되는데, 어느 한 편도 다른 편 없이 기능할 수 없다. 신성의 다른 본질특성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초우주 2품천사들은 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위대함과 선함의 반영적 측정치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세계에서든지, 어떤 우주에서든지, 위대함에 대한 그리고 선함에 대한 이 반영자들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초점화구현하는 각 존재에 대한 2원적(二元的) 그리고 상호 의존적 보고서를 항상 제시한다.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측정될 수 없는 반면, 선함은 그것의 선천적이고 신성한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고는 묘사될 수 없다.

위대함에 대한 측정은 구체마다 다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과-같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함의 본질특성은 전적으로 선(善)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심지어는 너희의 현재 인간의 위치에서도, 만일 너희가 은혜로운 위로를 통하여 선하게 될 수 있다면, 너희는 그것으로서 위대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더욱 확고하게 바라볼수록, 그리고 너희가 더욱 끈질지게 추구할수록, 신성한 선(善)의 개념은 더욱 분명하게 너희로 하여금 위대함으로, 진정한 생존적 성격의 참된 고결함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is the exhibition of self-control. The great man is not he who “takes a city” or “overthrows a nation,” but rather “he who subdues his own tongue.”

28:6.21 (317.2) Greatness is synonymous with divinity. God is supremely great and good. *Greatness and goodness simply cannot be divorced.* They are forever made one in God. This truth is literally and strikingly illustrated by the reflective interdependence of the Secret of Greatness and the Soul of Goodness, for neither can function without the other. In reflecting other qualities of divinity, the superuniverse seconaphim can and do act alone, but the reflective estimates of greatness and of goodness appear to be inseparable. Hence, on any world, in any universe, must these reflectors of greatness and of goodness work together, always showing a dual and mutually dependent report of every being upon whom they focalize. Greatness cannot be estimated without knowing the content of goodness, while goodness cannot be portrayed without exhibiting its inherent and divine greatness.

28:6.22 (317.3) The estimate of greatness varies from sphere to sphere. To be great is to be Godlike. And since the quality of greatness is wholly determined by the content of goodness, it follows that, even in your present human estate, if you can through grace become good, you are thereby becoming great. The more steadfastly you behold, and the more persistently you pursue, the concepts of divine goodness, the more certainly will you grow in greatness, in true magnitude of genuine survival character.

제 7 장. 2품천사들의 사명활동

2품천사들은 초우주들의 수도에서 기원되고 그 위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연락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해안으로부터 공간의 진화 세계들까지 이른다. 그들은 초우주 정부들의 심의 회의들의 성원들에게 귀중한 보좌관들로서 봉사하며 유버사의 우대거류민단 즉: 하보나 운송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별 연구자들, 천 년 마다의 여행자들, 천상의 관찰자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의 어떤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유버사 주변을 도는 490개 연구 세계들에서 거주하는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1차 2품천사들 중 특정인들을 배정하는 기쁨을 누리며, 여기에서는 또한 2차 그리고 3차 계층들 중 대부분이 선생들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이 유버사 위성들은 시간의 완결하는 학교들인데, 하보나의 일곱-회로화 우주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제시한다.

2품천사들의 세 계층들 중, 상승하는 권한자

7. MINISTRY OF THE SECONAPHIM

28:7.1 (317.4) The seconaphim have their origin and headquarters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but with their liaison fellows they range from the shores of Paradise to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y serve as valued assistants to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ve assemblies of the supergovernments and are of great help to the courtesy colonies of Uversa: the star students, millennial tourists, celestial observers, and a host of others, including the ascendant beings in waiting for Havona transport. The Ancients of Days take pleasure in assigning certain of the primary seconaphim to assist the ascending creatures domiciled on the four hundred ninety study worlds surrounding Uversa, and here also do many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orders serve as teachers. These Uversa satellites are the finishing schools of the universes of time, presenting the preparatory course for the seven-circuited university of Havona.

28:7.2 (317.5) Of the three orders of seconaphim, the

들에게 배정된 3차 집단은 시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가장 광대하게 돌본다. 너희가 오르본톤의 기다리는 세계들에 너희가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봉사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란시아로부터 너희가 떠난 직후에 너희는 그들을 이따금씩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유버사 학교 세계들에 너희가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께 너희가 충만하게 사귀게 될 때 그들과의 동행 자신분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3차 2품천사들은 시간-절약자들, 공간 단축자들, 실수를 탐지하는 자들, 신실한 선생들, 그리고 큰 혼란과 영적 불확실성의 순간에 불안에 떠는 순례자들의 발을 거기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시간의 교차로에 놓인 자비 안에 있는 영속하는 안내 표지판들—신성한 확실성에 대한 살아있는 표시들—이다. 완전의 입구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너희는 신성의 도구에 접근하고 신(神)의 기법과 접촉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최초의 맨션세계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너희의 파라다이스 통과를 향한 하보나 수면(睡眠) 예비 상태 속에 너희의 눈을 감게 될 때까지, 점점 더, 너희는 완전의 문을 향해 오랫동안 여행하는 도중에 너희를 앞장서 온 그 안전하고도 의존할만한 순례자들의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지혜에 대해 그토록 충만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반영하는, 이 놀라운 존재들의 응급 도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란시아에 있는 반영적 계층의 이 천사들을 활용하는 충분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 세계를 자주 방문하는데, 배정된 개인성들을 대동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한다. 이 구체는 여전히 부분적인 영적 격리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봉사에 필요한 순환회로들 중 일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너희 세계가 관련된 반영적 순환회로들에게 한 번 더 반환될 때, 행성간의 그리고 우주간의 통신을 이루는 활동의 대부분은 크게 단순화되고 촉진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의 일꾼들은 그들의 반영적 연관-동료들의 이 기능적 단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들, 시간의 현존 투영자들과 살아있는 공간의 거울들의 봉사들 대부분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지닌 도구수단들을 가지고 즐거움 넘치게 우리의 관련자들을 수행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유버사의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tertiary group, attached to the ascendant authorities, minister most extensively to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You will on occasion meet them soon after your departure from Urantia, though you will not freely make use of their services until you reach the tarrying worlds of Orvonton. You will enjoy their companionship when you become fully acquainted with them during your sojourn on the Uversa school worlds.

28:7.3 (318.1) These tertiary seconaphim are the timesavers, space abridgers, error detectors, faithful teachers, and everlasting guideposts — living signs of divine surety — in mercy placed at the crossroads of time, there to guide the feet of anxious pilgrims in moments of great perplexity and spiritual uncertainty. Long before attaining the portals of perfection, you will begin to gain access to the tools of divinity and to make contact with the techniques of Deity. Increasingly, from the time you arrive on the initial mansion world until you close your eyes in the Havona sleep preparatory to your Paradise transit, you will avail yourself of the emergency help of these marvelous beings, who are so fully and freely reflective of the sure knowledge and certain wisdom of those safe and dependable pilgrims who have preceded you on the long journey to the portals of perfection.

28:7.4 (318.2) We are denied the full privilege of using these angels of the reflective order on Urantia. They are frequent visitors on your world, accompanying assigned personalities, but here they cannot freely function. This sphere is still under partial spiritual quarantine, and some of the circuits essential to their services are not here at present. When your world is once more restored to the reflective circuits concerned, much of the work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communication will be greatly simplified and expedited. Celestial workers on Urantia encounter many difficulties because of this functional curtailment of their reflective associates. But we go on joyfully conducting our affairs with the instrumentalities at hand, notwithstanding our local deprivation of many of the services of these marvelous beings, the living mirrors of space and the presence projectors of time.

28:7.5 (318.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of Uversa.]

제 29 편 우주 힘 지도자

⇨ 028

유랜시아 책

030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29 편 우주 힘 지도자

섹션

소개

제 1 장. 일곱 최극 힘 지도자

제 2 장. 최극 힘 중심

제 3 장. 힘 중심들의 권역

제 4 장. 주(主)물리통제자

제 5 장. 주(主)기세조직자

소개

행성 간의 문제들과 우주 간의 관련사들을 규제하는 일에 관여하는 전체 우주 개인성들 중에서,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유랜시아에 가장 적게 알려져 왔다. 너희 종족들이 천사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천상의 존재들의 계층들의 실존을 오래 전부터 알아온 반면, 물리적 권역의 통제자들 그리고 규제자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수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주우주 안에서 기세 통제와 에너지 규정에 관여해야만 되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들 중 마지막 것에 대해서만 충만하게 밝히도록 나에게 허용되었다:

1.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2.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3. 우주 힘 지도자.

우주 힘 지도자들,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의 다양한 집단의 개별존재성을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의 활동 권역에 관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대우주에 두루 에너지에 대한 지능적 규정에 관여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독특한 집단이다. 최극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은 다음

PAPER 29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 The Supreme Power Centers
3. The Domain of Power Centers
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 The Master Force Organizers

INTRODUCTION

29:0.1 (319.1) OF ALL the universe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regulation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affairs,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have been the least understood on Urantia. While your races have long known of the existence of angels and similar orders of celestial beings, litt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ntrollers and regulators of the physical domain has ever been imparted. Even now I am permitted fully to disclose only the last of the following three groups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force control and energy regulation in the master universe:

29:0.2 (319.2) 1.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29:0.3 (319.3) 2.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29:0.4 (319.4) 3. Universe Power Directors.

29:0.5 (319.5) Though I deem it impossible to portray the individuality of the various groups of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universe power, I hope to be able to explain something about the domain of their activities. They are a unique group of living beings having to do with the intelligent regulation of energ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cluding

과 같은 주요 부서들을 포용한다:

1. 일곱 최극 힘 지도자.
2. 최극 힘 중심.
3. 주(主)물리통제자.
4. 모론시아 힘 감독자.

최극 힘 지도자들 그리고 중심들은 거의 영원
의 시간부터 존재해 왔고, 우리가 아는 한, 이 계층
들의 존재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았다. 일곱 최
극 지도자들은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개인성구
현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1백억 명이 넘는 연
관-동료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들의 부모들과 협
동하였다. 힘 지도자들의 시대 전에는 중앙우주
밖에 있는 공간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이 파라다이스
의 주(主)기세조직자들의 지능적 감독 아래에
있었다.

물리적 창조체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너희는 적어도 영적 존재들에 대한 대조적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만; 힘 지도자들을 상상하는
일은 필사자 마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교
적 높은 실존 차원들을 향한 상승 진보의 기획에
있어서 너희는 최극 지도자들 또는 힘 중심들 중
어느 쪽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드문 경우에 너희는 물리통제자들과 교제
를 나누게 될 것이며, 너희는 맨션세계들에 도달
할 때 모론시아 힘의 감독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그
지역 창조계의 모론시아 체제 안에서만 배타적으
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우주와 관계되는 구역
안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1 장. 일곱 최극 힘 지도자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대우주의 물리-에너
지 규제자이다.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한 그들의
창조는 참된 영 조상으로부터의 반(半) 물질적 자
손이 도출된, 첫 번째로 기록된 사례이다. 일곱 주
(主) 영들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들은 천사
계층에 있는 높은 영적 개인성들을 나오게 한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창조할 때, 그들은 때때로 이
들 높은 유형의 반(半)물질적 존재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들 준(準)-물리적 존재일지라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짧은-범위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극 힘 지도자들은 숫자가 일곱이고, 그들은
모습과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다. 각각이 즉각적인
관계적-연합되어 있는 주(主) 영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이로부터 구별될 수 없

the supreme directors, they embrace the following
major divisions:

- 29:0.6 (319.6)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 29:0.7 (319.7) 2. The Supreme Power Centers.
- 29:0.8 (319.8) 3.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 29:0.9 (319.9) 4.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29:0.10 (319.10)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Centers have existed from the near times of eternity, and as far as we know, no more beings of these orders have been created. The Seven Supreme Directors were personaliz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n they collaborated with their parents in the production of more than ten billion associates. Before the days of the power directors the energy circuits of space outside of the central universe were under the intelligent supervision of the Master Force Organizers of Paradise.

29:0.11 (319.11) Having knowledge about material creatures, you have at least a contrastive conception of spiritual beings;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mortal mind to envisage the power directors. In the scheme of ascendant progression to higher levels of existence you have nothing directly to do with either the supreme directors or the power centers. On certain rare occasions you will have dealings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you will work freely with the supervisors of morontia power upon reaching the mansion worlds. These Morontia Power Supervisors function so exclusively in the morontia regime of the local creations that it is deemed best to narrate their activities in the section dealing with the local universe.

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9:1.1 (320.1)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the physical-energy regul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ir creation by the Seven Master Spirits is the first recorded instance of the derivation of semimaterial progeny from true spirit ancestry.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create individually, they bring forth highly spiritual personalities on the angelic order; when they create collectively, they sometimes produce these high types of semimaterial beings. But even these quasi-physical beings would be invisible to the short-range vision of Urantia mortals.

29:1.2 (320.2)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seven in number, and they are identical in appearance and function. One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another except by that Master

으며, 그에게는 각각이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복종한다. 주(主) 영들 각자는 그들의 집단적 자손 중 하나와 그렇게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동일한 그 지도자는 같은 영과 항상 관계적-연합을 이루며, 그들이 일하는 협력관계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반(半)물리적 존재와 영 개인성의 독특한 관계적-연합을 가져온다.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서히 회전하는 그들의 현존들은 주(主) 영들의 기세-초점 본부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힘 지도자들은 초우주들의 힘-에너지 규정 안에서 단독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창조의 관리-행정 안에서는 집단적으로 기능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작용하지만 대우주의 전체 부서들 안에서는 효력적인 힘 중심들로서 자신을 유지한다.

이들 막강한 존재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흩어져 있는 물리통제자들의 광대한 무리의 물리적 조상들이다. 그러한 종속된 물리적-통제 유기체들은 기본적으로 균일한데, 각 초우주 무리단의 특이한 색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똑같다. 초우주 봉사를 바꾸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색조를 띠도록 파라다이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물리적 창조는 관리-행정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제 2 장. 최극 힘 중심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들 자신을 재생산할 수 없지만, 집단적으로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닮은 다른 존재들을 재생산-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대우주의 최극 힘 중심들이 그렇게 지원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들로 기능한다:

1. 최극 중심 감독자.
2. 하보나 중심.
3. 초우주 중심.
4. 지역우주 중심.
5. 별자리 중심.
6. 체계 중심.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최극 힘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 힘 중심들은 높은 의지적 자유와 행동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모두 셋째-근원 개인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고 높은 계층의 명백한 의지적 수용능력을 드러낸다. 우주 힘 체계의 이들 지도하는 중심들은 절묘한

Spirit with whom each is in immediate association, and to whom each is in complete functional subservience. Each of the Master Spirits is thus in eternal union with one of their collective offspring. The same director is always in association with the same Spirit, and their working partnership results in a unique association of physical and spiritual energies, of a semiphysical being and a spirit personality.

29:1.3 (320.3)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stationed on peripheral Paradise, where their slowly circulating presences indicate the whereabouts of the force-focal headquarters of the Master Spirits. These power directors function singly in the power-energy regulation of the superuniverses but collectively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entral creation. They operate from Paradise but maintain themselves as effective power centers in all divisions of the grand universe.

29:1.4 (320.4) These mighty beings are the physical ancestors of the vast host of the power centers and, through them, of the physical controllers scattered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Such subordinate physical-control organisms are basically uniform, identical except for the differential toning of each superuniverse corps. In order to change in superuniverse service, they would merely have to return to Paradise for retoning. The physical creation is fundamentally uniform in administration.

2. THE SUPREME POWER CENTERS

29:2.1 (320.5)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re not able, individually, to reproduce themselves, but collectively, and in association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they can and do reproduce — create — other beings like themselves. Such is the origin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grand universe, who function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 29:2.2 (320.6)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 29:2.3 (320.7) 2. Havona Centers.
- 29:2.4 (320.8) 3. Superuniverse Centers.
- 29:2.5 (320.9) 4. Local Universe Centers.
- 29:2.6 (320.10) 5. Constellation Centers.
- 29:2.7 (320.11) 6. System Centers.
- 29:2.8 (320.12) 7. Unclassified Centers.

29:2.9 (321.1) These power centers together with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beings of high will freedom and action. They are all endowed with Third-Source personality and disclose unquestioned volitional capacity of a high order.

지능 자질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대우주의 힘 체계의 지성이고 주(主)물리통제자들 그리고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멀리-퍼지는 기능들의 모든 광대한 연결망에 대한 마음 통제에서의 기법의 비밀이다.

1. 최극 중심 감독자. 최극 힘 지도자들의 이 일곱 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은 대우주의 주 에너지 순환회로들의 규제자들이다. 각 중심 감독자는 일곱 최극집행자들의 특별한 세계들 중 하나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들은 일반적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이 협조자들과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활동한다.

최극 힘 지도자들과 최극 중심 감독자들은 “중력 에너지”의 차원들 아래에 있는 모든 조화우주 현상들에 관하여 개별존재와 그리고 공동으로 둘 모두로서 기능한다. 연락을 이루면서 활동할 때, 이 14명의 존재들은 우주 힘에 대한 것이 되고, 이것은 일곱 최극집행자들이 일반적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일곱 주(主) 영들이 우주 마음에 대한 것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2. 하보나 중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창조 전에, 힘 중심들이 하보나에 있었어야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주-먼 시간 이후로 줄곧, 백만 명이 중앙 창조 안에서 기능해 왔는데, 각 중심은 1,000개 하보나 세계들을 감독한다. 이곳 신성한 우주 안에 에너지 통제의 완전,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 에너지 규정의 완전은 전체 힘 중심들 그리고 공간의 물리통제자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3. 초우주 중심. 일곱 초우주들 각각의 수도 구체에서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3차 계층의 1,000개 힘 중심들이다. 분리된 10개의 1차 에너지의 세 흐름들이 각각 이 힘 중심들에게 들어 오지만, 불완전하게 통제되더라도 전문화 된 그리고 잘-방향이 잡힌 일곱 힘 순환회로들은 연합하여 행동하는 그들의 자리로부터 나아간다. 이것은 우주 힘의 전자(電子) 조직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주기 안에서 순환되지만, 우주 힘 지도자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공간 기능들 안에서 변형되는 그들을 그들이 발견할 때 파라다이스 하부의 기체-에너지들을 지도하는데, 이 에너지들을 유익하고 건설적으로 적용하는 경로들 속으로 바꾸고 지도한다. 하보나 에너지와 초우주들의 에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초우주의 힘 전하(電荷)는 각각 10개로 분리된 세 위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중적 에너지 전하는 대우주의 공간에 두루 퍼져 있다; 그것은 일곱 초(超)창조계 각각의 전체를 에워싸 돌이키고 적시어 씻기는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대양(大

These directing centers of the universe power system are the possessors of exquisite intelligence endowment; they are the intellect of the power system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 secret of the technique of the mind control of all the vast network of the far-flung func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29:2.10 (321.2)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These seven co-ordinates and associates of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the regulators of the master energy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Each center supervisor is headquartered on one of the special worlds of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nd they work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se co-ordinators of general universe affairs.

29:2.11 (321.3)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Supreme Center Supervisors function both as individuals and conjointly with regard to all cosmic phenomena below the levels of “gravity energy.” When acting in liaison, these fourteen beings are to universe power what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are to general universe affairs, and what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o the cosmic mind.

29:2.12 (321.4) 2. *Havona Centers.* Befor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power centers were not required in Havona, but ever since these far-distant times, one million have functioned in the central creation, each center having the supervision of a thousand Havona worlds. Here in the divine universe there is perfection of energy control, a condition not existing elsewhere. Perfection of energy regulation is the ultimate goal of all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of space.

29:2.13 (321.5) 3. *Superuniverse Centers.* Occupying an enormous area on the capital sphere of each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one thousand power centers of the third order. Three currents of primary energy of ten segregations each come in to these power centers, but seven specialized and well-directed, though imperfectly controlled, circuits of power go forth from their seat of united action. This is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universe power.

29:2.14 (321.6) All energy is circuited in the Paradise cycle, but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direct* the force-energies of nether Paradise as they find them modified in the space function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converting and directing these energies into channels of useful and constructive applic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Havona energy and the energies of the superuniverses. The power charge of a superuniverse consists of three phases of energy of ten segregations each. This threefold energy charge spreads throughout the space of the grand

洋)과 같다.

우주 힘의 전자적 조직은 일곱 위상들로 기능하며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나타낸다. 이 칠중 순환회로는 초우주 힘 중심들로부터 진행하고 각 초(超)창조에 널리 퍼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특별한 흐름들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둘러싸여진 현상으로서의 멕시코 만류가 기능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특별한 목적들을 위하여 개시되고 지도를 받는 분명하고 그리고 지역화된 에너지 움직임들이다.

4. 지역우주 중심. 각 지역우주의 본부에는 4 번째 계층의 100 명의 힘 중심들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은 초우주 본부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일곱 힘 순환회로들을 낮추고 그리고 아니면 변경시키기 위하여 기능하면서, 것처럼 그것을 별자리와 체계의 봉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공간의 지역적인 천문학적 대제양들은 이 힘 중심들에게는 일시적인 관심에 속한다; 그들은 종속된 별자리와 체계로 효력적인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훗날 우주 조직화와 에너지 동원의 시기에, 창조자 아들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 중심들은 거주민이 사는 중요한 점들 사이의 행성간 통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집중된 에너지 통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에너지 통로 또는 선(線)은, 때로 에너지 경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힘 중심으로부터 다른 힘 중심으로 또는 한 물리통제자로부터 다른 통제자에게로 가는 에너지의 직통 순환회로이다. 그것은 개별화된 힘 흐름이며 분리되지 않은 에너지의 자유 공간 운동들과 대비된다.

5. 별자리 중심. 살아있는 이 힘 중심들 중 10 명이 각 별자리에 주둔하고 있는데, 소속된 100개 지역체계들에게 에너지 투영자들로서 기능한다. 통신과 운송을 위한,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 물리적 에너지의 일정한 형태들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창조체들에게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하여, 힘 공급선들이 이 존재들로부터 외부로 나간다. 그러나 그 힘 중심들뿐만 아니라 종속된 물리통제자들도, 기능적 조직에서의 생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6. 체계중심. 한 명의 최극 힘 중심이 각 지역 체계에 영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체계중심들은 시간과 공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힘 순환회로들을 보낸다. 그들은 종속된 물리통제자들의 활동을 조화-협동시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체계 안에서 힘의 만족스러운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한다. 행성들 사이의 순환회로 교대는 일정한 물질적 에너지들의 완전한 조화-협동에 그리고 물리적 힘의 효과적 규정에 의존한다.

universe; it is like a vast moving ocean of energy which engulfs and bathes the whole of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29:2.15 (321.7)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universe power functions in seven phases and discloses varying respons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is sevenfold circuit proceeds from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and pervades each supercreation. Such specialized currents of time and space are definite and localized energy movements initiated and directed for specific purposes, much as the Gulf Stream functions as a circumscribed phenomenon in the midst of the Atlantic Ocean.

29:2.16 (321.8) 4. *Local Universe Center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local universe are stationed one hundred power centers of the fourth order. They function to downstep and otherwise to modify the seven power circuits emanating from superuniverse headquarters, thus making them applicable to the services of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 local astronomical catastrophes of space are of passing concern to these power centers; they are engaged in the orderly dispatch of effective energy to the subsidiary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y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Creator Sons during the later times of universe organization and energy mobilization. These centers are able to provide intensified lanes of energy useful for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between important inhabited points. Such a *lane* or *line* of energy, sometimes also called an energy path, is a direct circuit of energy from one power center to another power center or from one physical controller to another controller. It is an individualized stream of power and stands in contrast to the free space movements of undifferentiated energy.

29:2.17 (322.1) 5. *Constellation Centers*. Ten of these living power centers are stationed in each constellation, functioning as energy projectors to the one hundred tributary local systems. From these beings there go forth the power lines for communication and transport and for the energizing of those living creatures who are dependent upon certain forms of physical energy for the maintenance of life. But neither the power centers nor th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are otherwise concerned with life as a functional organization.

29:2.18 (322.2) 6. *System Centers*. One Supreme Power Center is permanently assigned to each local system. These system centers dispatch the power circuits to the inhabited worlds of time and space. They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and otherwise function to insure the satisfactory distribution of power in the local system. The circuit relay between the planets depends upon the perfect co-ordination of certain material energies and upon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이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이 아니라 특별한 지역적 상황에서 기능하는 중심들이다. 개별 세계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들의 체계의 힘 중심에 의해 보내진 순환회로에 둘러싸인 힘 줄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비범한 에너지 관계들에 속한 그 구체들만이 우주 균형 바퀴들 또는 에너지 통치자들로서 활동하는 일곱 번째 계층의 힘 중심들을 갖는다. 모든 활동 위상마다 이 힘 중심들은 비교적 높은 통제 단위들에서 기능하는 그들과 충분히 똑같지만, 백만 개 중 어느 한 공간 본체도 그러한 살아있는 힘 조직을 품고 있지 않다.

제 3 장. 힘 중심들의 권역

초우주들에 두루 퍼져 있는 최극 힘 중심들의 숫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종속들을 포함하여 1백억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파라다이스 선조들, 최극 힘 지도자들과 완전한 동조와 완성된 연락 속에 있다. 대우주의 힘 통제는 일곱 주(主) 영들,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창조자들의 보호와 지도에 그렇게 맡겨져 있다.

최극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과 종속들 모두는 전체 공간의 모든 법정들에 의해 불만 또는 방해로부터 언제까지나 면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옛적으로 늘게신이의 초우주 정부 또는 창조자 아들들의 지역 우주 관리-행정에 속한 관리-행정적 지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힘 중심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무한한 영의 자녀들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그들은 우주 물리적 조직의 후기 신(新)시대 동안 창조자 아들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아들들의 관리-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 중심들은 어떤 면에서 최극존재의 조화우주 전반적-통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은 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완전하게 창조되고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결코 한 기능으로부터 다른 기능으로 옮기지 않는다; 기원적으로 배정된 대로 항상 봉사한다. 그들 계급에는 진화가 없고, 이것은 두 계층의 일곱 부서들 전체에 개도 그러하다.

기억 속으로 돌이킬 수 있는 상승하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은 결코 장난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속속들이 사무적이다. 그들은 항상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적 기획 안에는 물리적 계통의 에너지의 중단에 대비하는 준비가 없으며; 이 존재

the efficient regulation of physical power.

29:2.19 (322.3) 7. *Unclassified Centers.* These are the centers who function in special local situations but not on the inhabited planets. The individual worlds are in the charge of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receive the encircuited lines of power dispatched by the power center of their system. Only those spheres of the most extraordinary energy relationships have power centers of the seventh order acting as universe balance wheels or energy governors. In every phase of activity these power centers are the full equals of those who function on the higher units of control, but not one space body in a million harbors such a living power organization.

3. THE DOMAIN OF POWER CENTERS

29:3.1 (322.4) The Supreme Power Centers distributed throughout the superuniverses number, with their associates and subordinates, upward of ten billion. And they are all in perfect synchrony and complete liaison with their Paradise progenitors,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The power control of the grand universe is thus intrusted to the keeping and direc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creators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29:3.2 (322.5)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nd all their associates, assistants, and subordinates are forever exempt from apprehension or interference by all the tribunals of all space; neither are they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direction either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the Ancients of Days or of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of the Creator Sons.

29:3.3 (323.1) These power centers and directors are brought into being by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not germane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Sons of God, though they affiliate with the Creator Sons during the later epochs of universe material organization. But the power centers are in some way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smic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29:3.4 (323.2)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undergo no training; they are all created in perfection and are inherently perfect in action. Never do they pass from one function to another; always do they serve as originally assigned. There is no evolution in their ranks, and this is true of all seven divisions of both orders.

29:3.5 (323.3) Having no ascendant past to revert to in memory,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never play; they are thoroughly businesslike in all their actions. They are always on dut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universal scheme for the interruption of the physical lines of energy; never

들은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감독을 1초의 몇 분의 1이라도 중단할 수 없다.

힘 지도자들과 중심들과 통제자들은 물질적 또는 반(半)물질적 에너지인 힘을 제외하고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기원시키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것을 변형시키고 조종하고 방향화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 중력의 당기는 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중력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힘 중심들은 분리된 다양한 에너지 집중들의 살아있는 기능구조들과 연락을 이루는 물질적 계층의 광대한 기능구조들과 조화-협동들을 활용한다. 각각의 개별적 힘 중심은 정확하게 1백만 단위의 기능적 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에너지-변형 단위들은 사람의 물리적 몸체의 살아있는 기관들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힘 규정의 “살아있는 기관들”은 연관 가능성들 안에서 유동적이고 정말로 변화무쌍하다.

우주 에너지의 주 순환회로들에 대한 조종과 규제를 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철저히 벗어난다. 이 거대하고 거의 완전하게 유능한 힘 중심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알려주고자 시도하는 일은 오직 너희에게 혼돈을 더해주고 더 놀라게 할뿐일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시에 “개인적”이지만, 그들은 너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다.

하보나 밖에서는 최극 힘 중심들이 오직 특별하게 구축된 (고안건축의) 구체들에서만 또는 적절하게 건축된 다른 공간 본체들에서만 기능한다. 고안건축의 그 세계들은, 그들이 이들 구체들 위에 부은 것처럼 공간의 에너지들을 방향화하고 변형시키고 집중하기 위한 선택적 스위치들로서 살아있는 힘 중심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어진다. 그들은 평범한 진화적 태양 또는 행성에서는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어떤 집단들은 특별한 이 본부 세계들을 가열시키는 일 그리고 다른 물질적 필요에도 관여한다. 그리고 그것이 유란시아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열이 나지 않고 빛나는 빛을 발산하는 일에 이 계층의 살아있는 힘 개인성들이 많이 관여함을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이 이 현상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의 보급과 방향성구현에 관여한다.

힘 중심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통제자들은 조직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들 전체에 대한 활동에 배정된다. 그들은 각각 10가지 에너지들로 이루어진 세 개의 기본 흐름들을 가지고 일한다. 그것이 조직된 공간의 에너지 전하이다; 조직된 공간은 그것들의 권역이다. 우주 힘 지도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현재 경계선들 밖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거대한 기세의 활동들과 관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있지 않다.

for a fraction of a second can these beings relinquish their direct supervision of the energy circuits of time and space.

29:3.6 (323.4) The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power have nothing to do with anything in all creation except power, material or semiphysical energy; they do not originate it, but they do modify, manipulate, and directionize it. Neither do they have anything whatever to do with physical gravity except to resist its drawing power. Their relation to gravity is wholly negative.

29:3.7 (323.5) The power centers utilize vast mechanisms and co-ordinations of a material order in liaison with the living mechanisms of the various segregated energy concentrations. Each individual power center is constituted in exactly one million units of functional control, and these energy-modifying units are not stationary as are the vital organs of man's physical body; these “vital organs” of power regulation are mobile and truly kaleidoscopic in associative possibilities.

29:3.8 (323.6) It is utterly beyond my ability to explain the manner in which these living beings encompass the manipulation and regulation of the master circuits of universe energy. To undertake to inform you further concerning the size and function of these gigantic and almost perfectly efficient power centers, would only add to your confusion and consternation. They are both living and “personal,” but they are beyond your comprehension.

29:3.9 (323.7) Outside of Havona the Supreme Power Centers function only on especially constructed (architectural) spheres or on otherwise suitably constituted space bodies. The architectural worlds are so constructed that the living power centers can act as selective switches to directionize, modify, and concentrate the energies of space as they pour over these spheres. They could not so function on an ordinary evolutionary sun or planet. Certain groups are also concerned in the heating and other material necessities of these special headquarters worlds. And though it is beyond the scope of Urantia knowledge, I may state that these orders of living power personalities have much to do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light that shines without heat. They do not produce this phenomenon, but they are concerned with its dissemination and directionization.

29:3.10 (323.8) The power centers and their subordinate controllers are assigned to the working of all of the physical energies of organized space. They work with the three basic currents of ten energies each. That is the energy charge of organized space; and organized space is their domain.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ose tremendous actions of force which are now taking place

힘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은 각 기본 우주 흐름 안에 포함된 10가지 에너지 형태들 중 오직 7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한 통제를 행사한다; 그들의 통제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외된 그 형태들은 분별불가 절대자가 지배하는 에너지 현시활동의 예측 불가능 영역들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이 이 절대자의 원초기세에 영향을 가한다면, 우주 절대자의 어떤 자극들에 대해 일정한 물리통제자들이 때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그 견해를 보장할만한 어떤 작은 증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능들을 알지 못한다.

살아있는 이 힘 기능구조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주 우주 에너지 전반적-통제에 의식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체적인 그리고 거의 완전한 힘 지도 기획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 초(超)중력 현존에 종속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지역적 에너지 상황에서든지 그 중심들과 통제자들은 최극위-인접을 발휘하지만, 그들은 초(超)에너지 현존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식별 불가능한 행위를 항상 인식한다.

제 4 장. 주(主)물리통제자

이 존재들은 최극 힘 중심들의 기동력 있는 종속들이다. 그 물리통제자들은 그들이 자동-운송의 괄목할만한 다양성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에서의 개별존재성 탈바꿈의 수용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는데, 단독 메신저들의 비행에 가까운 속도로 지역적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공간 횡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떤 물질적 구체로부터 떠나갈 때 관성의 저항과 중력의 작용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들의 동료들 그리고 다른 일정한 유형의 존재들의 도움을 둘 모두 필요로 한다.

주(主)물리통제자들은 대우주에 두루 봉사한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본부에 이르기까지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 의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치된다; 그들은 연관-동료 주(主) 기세 조직자들의 요원으로부터 일곱 주(主) 영에 의해 파견된 힘에서의 높은 위원들인, 평형 위원회에 의해 지도를 받고 그리고 분배된다. 이들 높은 위원들은, 전체 초우주의 힘 압력과 에너지 전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도구들인, 주(主) 후관달랑크들의 읽어들이는 것과 그리고 등록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현존이 대우주 주변을 돌고 영원의 순환계 주변을 지나갈 때, 일곱 주

outside the present boundari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29:3.11 (324.1) The power centers and controllers exert perfect control over only seven of the ten forms of energy contained in each basic universe current; those forms which are partly or wholly exempt from their control must represent the unpredictable realms of energy manifestation dominated by the Unqualified Absolute. If they exert an influence upon the primordial forces of this Absolute, we are not cognizant of such functions, though there is some slight evidence which would warrant the opinion that certain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sometimes automatically reactive to certain impulses of the Universal Absolute.

29:3.12 (324.2) These living power mechanisms are not consciously related to the master universe energy overcontrol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we surmise that their entire and almost perfect scheme of power direction is in some unknown manner subordinated to this supergravity presence. In any local energy situation the centers and controllers exert near-supremacy, but they are always conscious of the superenergy presence and the unrecognizable performa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29:4.1 (324.3) These beings are the mobile subordinates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endowed with capabilities of individuality metamorphosis of such a nature that they can engage in a remarkable variety of autotransport, being able to traverse local space at velocities approaching the flight of Solitary Messengers. But like all other space traversers they require the assistance of both their fellows and certain other types of beings in overcoming the action of gravity and the resistance of inertia in departing from a material sphere.

29:4.2 (324.4)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serve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y are directly governed from Paradise by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s far a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from here they are directed and distributed by the Council of Equilibrium, the high commissioners of power dispatched by the Seven Master Spirits from the personnel of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These high commissioners are empowered to interpret the readings and registrations of the master frandalanks, those living instruments which indicate the power pressure and the energy charge of an entire superuniverse.

29:4.3 (324.5) While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Deities encircles the grand universe and sweeps

(主) 영들 중 어느 하나의 영향은 단일 초우주에 제한된다. 일곱 초(超)창조들 각각 사이에는 에너지의 뚜렷한 분리와 힘의 순환회로들의 분리가 있다; 따라서 개별화된 통제 방법들이 지배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주(主)물리통제자들은 최극 힘 중심들의 직접적인 자손들이며, 그들의 숫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2. 기계적 통제자.
3. 에너지 변환자.
4. 에너지 전달자.
5. 1차 연관자.
6. 2차 분리자.
7. 후란달랑크들 그리고 크로놀텍.

선택에서의 개별적 힘들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들 계층 전체가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마지막 네 가지 존재들은 그들 상급자들의 충동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그리고 존재하는 에너지 조건들에 대해 반응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응답이 전적으로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자동장치처럼 보이지만, 그들 전체는 지능의 차별적 기능을 나타낸다.

개인성은 반드시 마음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저급한 유형의 동물들의 경우와 같이 그리고 일정한 이 종속 물리통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마음은 모든 선택 힘을 빼앗겼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다. 더욱 자동적인 이 물리적 힘의 규제자자들 대부분은 그 말의 어느 의미에서 보더라도 개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의지와 독립 결정권을 자질로서 부여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위한 설계의 기계적 완전에 전적으로 굴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매우 지능적인 존재들이다.

물리통제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초 에너지들의 조절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이들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들은 행성간 운송 체계에 그리고 일정한 통신 기법에 매우 필수적이다. 소리에 상응하는 것들을 전달하거나 상상력을 확장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에너지 선로를 깔 때, 발견되지 않은 이들 에너지 형식들은 살아있는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유용하게 된다. 동일한 이 에너지들이 가끔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 그들의 일상 작업에 사용된다.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놀라울 정도로 유능한 이 존재들은 영역들의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 상태의 계속-바뀌는 필요성들에 따라서 주(主)물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the influence of an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s limited to a single superuniverse. There is a distinct segregation of energy and a separation of the circuits of power between each of the seven supercreations; hence individualized control methods must and do prevail.

29:4.4 (324.6)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the direct offspring of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their numbers include the following:

- 29:4.5 (324.7) 1. Associate Power Directors.
- 29:4.6 (324.8) 2. Mechanical Controllers.
- 29:4.7 (324.9) 3. Energy Transformers.
- 29:4.8 (325.1) 4. Energy Transmitters.
- 29:4.9 (325.2) 5. Primary Associators.
- 29:4.10 (325.3) 6. Secondary Dissociators.
- 29:4.11 (325.4) 7. The Frandalanks and Chronoldeks.

29:4.12 (325.5) Not all of these orders are persons in the sense of possessing individual powers of choice. Especially do the last four seem to be wholly automatic and mechanical in response to the impulses of their superiors and in reaction to existing energy conditions. But though such response appears wholly mechanistic, it is not; they may seem to be automatons, but all of them disclose the differential function of intelligence.

29:4.13 (325.6) Personality is not necessarily a concomitant of mind. Mind can think even when deprived of all power of choice, as in numerous of the lower types of animals and in certain of these subordinate physical controllers. Many of these more automatic regulators of physical power are not persons in any sense of the term. They are not endowed with will and independence of decision, being wholly subservient to the mechanical perfection of design for the tasks of their allotment. Nonetheless all of them are highly intelligent beings.

29:4.14 (325.7)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chiefly occupied in the adjustment of basic energies undiscovered on Urantia. These unknown energies are very essential to the interplanetary system of transport and to certain techniques of communication. When we lay lines of energy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sound equivalents or of extending vision, these undiscovered forms of energy are utilized by the living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These same energies are also, on occasion, used by the midway creatures in their routine work.

29:4.15 (325.8) 1. Associate Power Directors. These marvelously efficient beings are intrusted with the assignment and dispatch of all orders of the

리통제자들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임무배정 그리고 파견으로 설명된다. 물리통제자들의 광대한 예비자들이 소구역들의 본부 세계들에 유지되고 있으며, 이 집결 지점으로부터 그들은 우주들과 별 자리들과 체계들의 본부들에게로 그리고 개별 행성들에게로 연관-동료 힘 지도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파견된다. 그렇게 배정될 때, 그 물리통제자들은 화해 위원회의 신성한 집행자들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극 힘 중심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 지도자들에게만 복종한다.

3백만 명의 연관-동료 힘 지도자가 오르본톤 소구역들 각각에 배정되어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이 존재들이 초우주에 할당되는 전체 숫자가 30억이 되게 한다. 그들 자신의 예비자들은 동일한 이 소구역 세계들에서 유지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지능 에너지 통제 그리고 변형의 기법의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존재들의 강사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이 지도자들은 소구역에서 집행적 봉사를 하는 기간과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검열 봉사를 하는 기간을 똑같은 길이로 번갈아 보낸다. 적어도 한 명의 대리 검열자가 각 지역체계에 항상 제시되어 있는데, 그 수도 구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들은 광대한 살아있는 에너지 집합 전체가 조화로운 동조성을 이루도록 유지시킨다.

2. 기계적 통제자. 이들은 연관-동료 힘 지도자의 대단히 다재다능하고 기동력 있는 보좌관들이다. 수 조(兆)에 해당하는 그들이 너희 소구역인 엔사에 임명되어 있다. 이 존재들이 기계적 통제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그토록 완벽하게 지배되고, 연관-동료 힘 지도자들의 뜻에 그토록 완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매우 지능적이고, 그들의 활동은 비록 본성이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긴 하지만, 노련하게 발휘되고 있다.

거주되는 세계들에 배정된 전체 주(主)물리통제자들 중에서, 기계적 통제자들이 가장 윤택하게 힘이 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을 초과하는 반(反)중력의 살아있는 자질을 소유하기 때문에, 각 통제자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구체만이 필적할 수 있는 중력 저항을 소유한다. 이 통제자들 중 10명이 현재 유란시아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성 활동들 중 하나는 세라핌천사 운송체들이 쉽게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능함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출발을 위한 최초 추진력을 1,000명의 에너지 전송자 부대가 제공하는 동안 10명의 기계적 통제자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활동한다.

기계적 통제자들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하기에 그리고 전문화된 흐름들 또는 순환회로들

Master Physical Controllers in accordance with the ever-shifting needs of the constantly changing energy status of the realms. The vast reserve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maintaine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minor sectors, and from these concentration points they are periodically dispatched by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to the headquarters of the universes, constellations, and systems, and to the individual planets. When thus assigned,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provisionally subject to the orders of the divine executioners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but are otherwise solely amenable to their associate directors and to the Supreme Power Centers.

29:4.16 (325.9) Three million associate power directors are assigned to each of the Orvonton minor sectors, making a total of three billion as the superuniverse quota of these amazingly versatile beings. Their own reserves are maintained on these same minor sector worlds, where they also serve as instructors of all who study the sciences of the techniques of intelligent energy control and transmutation.

29:4.17 (325.10) These directors alternate periods of executive service in the minor sectors with equal periods of inspection service to the realms of space. At least one acting inspector is always present in each local system, maintaining headquarters on its capital sphere. They keep the whole vast living energy aggregation in harmonious synchrony.

29:4.18 (325.11) 2. *Mechanical Controllers.* These are the exceedingly versatile and mobile assistants of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Trillions upon trillions of them are commissioned in Ensa, your minor sector. These beings are called mechanical controllers because they are so completely dominated by their superiors, so fully subservient to the will of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Nevertheless they are, themselves, very intelligent, and their work, though mechanical and matter-of-fact in nature, is skillfully performed.

29:4.19 (326.1) Of al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ssigned to the inhabited worlds, the mechanical controllers are by far the most powerful. Possessing the living endowment of antigravity in excess of all other beings, each controller has a gravity resistance equaled only by enormous spheres revolving at tremendous velocity. Ten of these controllers are now stationed on Urantia, and one of their most important planetary activities is to facilitate the departure of seraphic transports. In so functioning, all ten of the mechanical controllers act in unison while a battery of one thousand energy transmitters provides the initial momentum for the seraphic departure.

29:4.20 (326.2) The mechanical controllers are competent to directionize the flow of energy and to

안으로 그것의 집중력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들의 분리와 방향성구현 그리고 강화에 그리고 행성간 순환회로의 압력을 균등화시키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한다. 그들은 초우주의 힘 전하를 구성하는, 공간의 30개 물리적 에너지들 중 21개의 조종에 숙련자이다. 그들은 또한 9가지 물리적 에너지의 미묘한 형태들 중 여섯 가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훨씬 잘 이룰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일정한 그 힘 중심들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관계에 이 통제자들을 배치함으로써, 연관-동료 힘 지도자는 힘 조절과 에너지 통제에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주(主)물리통제자들은 종종 수백, 수천, 그리고 심지어는 수백만에 이르는 부대들을 이루어 기능하고 그들의 위치와 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개별적 수용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적 능력에 에너지 통제를 이룰 수 있다. 요구조건들이 변함에 따라, 그들은 에너지양과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거나 또는 에너지 흐름들을 억류하고 압축하고 방해할 수 있다. 그들은 소위 촉매 작용 증강 화학적 반응이라 불리듯이 에너지와 힘 변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그리고 최극 힘 중심들과 협조하여 기능한다.

3. 에너지 변환자. 초우주 안에 있는 이 존재들의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사타니아 안에만 해도 거의 1,000,000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할당되는 숫자는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마다 100명이다.

에너지 변환자들은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과 일곱 중앙 감독자들의 공동 창조이다. 그들은 더욱 개인적인 물리통제자들의 계층 안에 있으며, 연관-동료 힘 지도자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제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변환자들이 지시한다. 그들은 떠나가는 세라핌천사 운송체들 전체에 대한 행성 검열자들이다. 모든 등급의 천상의 창조체는 보조 지도자들 그리고 에너지 변환자들의 더욱 개인적인 계층들과 연락함으로써만 물리통제자들의 비교적 덜 개인적인 계층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변환자들은 힘이 넘치고 효력 있는 살아 있는 스위치들인데, 주어진 힘의 처분 또는 방향 결정성에 대하여 또는 반하여 자신들을 배치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행성 그리고 별 모양의 이웃들 사이를 지나가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들에 대하여 행성들을 절연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노련하다. 그들의 에너지-변화 속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우주적 에너지 균형 또는 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에 가장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한때는 그들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축적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다른 때에는 그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그

facilitate its concentration into the specialized currents or circuits. These mighty beings have much to do with the segregation, directioniz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physical energies and with the equalization of the pressures of the interplanetary circuits. They are expert in the manipulation of twenty-one of the thirty physical energies of space, constituting the power charge of a superuniverse. They are also able to accomplish much towards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six of the nine more subtle forms of physical energy. By placing these controllers in proper technic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and to certain of the power centers, the associate power directors are enabled to effect unbelievable changes in power adjustment and energy control.

29:4.21 (326.3)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ften function in batteries of hundreds, thousands, and even millions and by varying their positions and formations are able to effect energy control in a collective as well as an individual capacity. As requirements vary, they can upstep and accelerate the energy volume and movement or detain, condense, and retard the energy currents. They influence energy and power transformations somewhat as so-called catalytic agents augment chemical reactions. They function by inherent ability and in co-operation with the Supreme Power Centers.

29:4.22 (326.4) 3. *Energy Transformers*. The number of these beings in a superuniverse is unbelievable. There are almost one million in Satania alone, and the usual quota is one hundred for each inhabited world.

29:4.23 (326.5) The energy transformers are the conjoint creation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Seven Center Supervisors. They are among the more personal orders of physical controllers, and except when an associate power director is present on an inhabited world, the transformers are in command. They are the planetary inspectors of all departing seraphic transports. All classes of celestial life can utilize the less personal order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only by liaison with the more personal orders of the associate directors and the energy transformers.

29:4.24 (326.6) These transformers are powerful and effective living switches, being able to dispose themselves for or against a given power disposition or directionization. They are also skillful in their efforts to insulate the planets against the powerful energy streams passing between gigantic planetary and starry neighbors. Their energy-transmutive attributes render them most serviceable in the important task of maintaining universal energy balance, or power equilibrium. At one time they seem to consume or store energy; at other times they appear to exude or liberate

변환자들은 그들 각자의 영역들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죽은 에너지의 “저장-축전기” 잠재를 증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물리적 그리고 반(半) 물질적 에너지들과 관계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권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태들을 바꾸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변환자들이 전체의 살아있는 반(半) 물질적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하고 신비로운 존재들이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물질적 분화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연락 관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연관된 현존들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그 에너지에 대한 큰 영향을 그들이 행사할 수 있다. 물리적 영역들의 지위는 그들의 노련한 조종 아래에서 어떤 변환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공간의 에너지들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동료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초우주 힘 전하의 30개 물리적 에너지들 중 27개의 형태 그리고 잠재를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에너지들 중 세 가지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그들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수단들이 아님을 증명한다.

주(主)물리통제자들 중 나머지 네 집단들은 그 말의 수용 가능한 정의(正義) 안에서 볼 때 거의 개인들이 아니다. 이 전송자들, 연관자들, 분리자들, 그리고 후관달랑크들은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의미에서 지능적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실존개체들에 대한 우리 지식에 있어서 크게 제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통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역의 언어를 납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들과 통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통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할 힘은 없다.

4. 에너지 전달자. 이 존재들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행성간의 입장에서 기능한다. 그들은 그것이 개별 세계들에서 현시되듯이 놀라운 에너지 발송자들이다.

에너지가 새로운 순환회로로 방향전환 될 때, 그 전송자들은 바람직한 에너지 경로를 따라 한 줄로 자신들을 배치하며, 에너지-인력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속성들 덕분에, 그들은 원하는 방향에서 증가된 에너지 흐름을 실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전자 에너지의 일정한 형태의 흐름에 대하여 어떤 금속 순환회로들이 방향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을 향한다; 그들은 30가지 물리적 에너지 형태들 중 반이 넘는 살아있는 초(超)전도체들이다.

행성에서 행성으로 그리고 개별 행성에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분화된 에너지의 약해지는 흐름들을 복구시키는 일에 효력이 있는 노련한 연락을 전달자들이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유형의 살아있는 존재에 의해 인식되기에는 너무 약한 흐름들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들은 동행하는 메시지가 완전하게 인지가 가능하게 되도록

energy. The transformers are able to increase or to diminish the “storage-battery” potential of the living and dead energies of their respective realms. But they deal only with physical and semimaterial energies, they do not directly function in the domain of life, neither do they change the forms of living beings.

29:4.25 (327.1) In some respects the energy transformers are the most remarkable and mysterious of all semimaterial living creatures. They are in some unknown manner physically differentiated, and by varying their liaison relationships, they are able to exert a profound influence upon the energy which passes through their associated presences. The status of the physical realms seems to undergo a transformation under their skillful manipulation. *They can and do change the physical form of the energies of space.* With the aid of their fellow controllers they are actually able to change the form and potential of twenty-seven of the thirty physical energies of the superuniverse power charge. That three of these energies are beyond their control proves that they are not instrumentaliti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29:4.26 (327.2) The remaining four group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hardly persons within any acceptable definition of that word. These transmitters, associators, dissociators, and frandalanks are wholly automatic in their reactions; nevertheless they are in every sense intelligent. We are greatly limited in our knowledge of these wonderful entities because we cannot communicate with them. They appear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realm, but they cannot communicate with us. They seem fully able to receive our communications but quite powerless to make response.

29:4.27 (327.3) 4. *Energy Transmitters.* These beings function chiefly, but not wholly, in an intraplanetary capacity. They are marvelous dispatchers of energy as it is manifested on the individual worlds.

29:4.28 (327.4) When energy is to be diverted to a new circuit, the transmitters deploy themselves in a line along the desired energy path, and by virtue of their unique attributes of energy-attraction, they can actually induce an increased energy flow in the desired direction. This they do just as literally as certain metallic circuits directionize the flow of certain forms of electric energy; and they are living superconductors for more than half of the thirty forms of physical energy.

29:4.29 (327.5) Transmitters form skillful liaisons which are effective in rehabilitating the weakening currents of specialized energy passing from planet to planet and from station to station on an individual planet. They can detect currents which are much too feeble to be recognized by any other type of living being, and they can so augment

이들 에너지를 증강시킬 수 있다. 그들의 봉사는 방송 접수자들에게 매우 귀중하다.

에너지 전송자들은 전달 가능한 인식의 모든 형태들에 관하여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지역체계들 안에 그리고 개별적 행성들 위에 응급 통신 회선들을 제공한다. 이들 서비스들은 정식으로 설립된 순환회로들의 외부와 통신할 목적을 원하는 모든 창조체들에게 실천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존재들은, 에너지 변환자들과 함께, 힘을 잃은 대기를 소유한 그 세계들에서 필사자 실존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들은 숨을 쉬지 않는 행성들에 있는 생명의 기법에서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5. 1차 연관자. 이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실존 개체들은 훌륭한 에너지 보존자들 그리고 보호관리자들이다. 행성이 태양 빛을 저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들은 추가적 현시활동들의 시기 동안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들은 거대한 크기로 일하는데, 공간의 에너지들을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 실존의 원시적 단위들 중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 변환들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그들의 현존에 의해 활동한다. 그들은 어떤 면으로도 이 기능에 의해 고갈되거나 비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는 촉매체들처럼 활동한다.

마이너스 현시활동의 시기 동안 그들은 누적된 이 에너지들을 방출할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너희의 지식은 그들의 활동의 이 위상에 해당하는 기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보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항상 우주적 법칙에 순응하여 수고하는데, 너희가 동일한 알파벳 글자들로 방대한 다른 이야기를 엮게 만들기 위하여 조절 가능한 글자들을 조종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원자들과 전자들 그리고 극자들을 다루고 조종한다.

연관자들은 조직화하는 물리적 구체 위에 나타나는 최초의 생명 집단이며, 그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들의 실존과는 전혀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할 물리적 기온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생명의 계층을 대변한다. 그들의 협력자들인 분리자들과 함께, 그들은 모든 지능 창조체들 중 가장 노예적이다.

6. 2차 분리자. 1차 연관자들과 비교하면, 거대한 반(反)중력 자질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역전시키는 일꾼들이다. 지역 세계들에서 또는 지역체계들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특별한 또는 변형된 형태들이 다 소모될 어떤 위험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조직들이 에너지의

these energies that the accompanying message becomes perfectly intelligible. Their services are invaluable to the broadcast receivers.

29:4.30 (327.6) Energy transmitters can function with regard to all forms of communicable perception; they can render a distant scene “visible” as well as a distant sound “audible.” They provide the emergency lines of communication in the local systems and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se services must be used by practically all creatures for purposes of communication outside of the regularly established circuits.

29:4.31 (327.7) These beings, together with the energy transformers, are indispensable to the maintenance of mortal existence on those worlds having an impoverished atmosphere, and the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technique of life on the nonbreathing planets.

29:4.32 (328.1) 5. *Primary Associators.* These interesting and invaluable entities are masterly energy conservators and custodians. Somewhat as a plant stores solar light, so do these living organisms store energy during times of plus manifestations. They work on a gigantic scale, converting the energies of space into a physical state not known on Urantia. They are also able to carry forward these transformations to the point of producing some of the primitive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se beings simply act by their presence. They are in no way exhausted or depleted by this function; they act like living catalytic agents.

29:4.33 (328.2) During seasons of minus manifestations they are empowered to release these accumulated energies. But your knowledge of energy and matter is not sufficiently advanced to make it possible to explain the technique of this phase of their work. They always labor in compliance with universal law, handling and manipulating atoms, electrons, and ultimatons much as you maneuver adjustable type to make the same alphabetical symbols tell vastly different stories.

29:4.34 (328.3) The associators are the first group of life to appear on an organizing material sphere, and they can function at physical temperatures which you would regard as utterly incompatible with the existence of living beings. They represent an order of life which is simply beyond the range of human imagination. Together with their co-workers, the dissociators, they are the most slavish of all intelligent creatures.

29:4.35 (328.4) 6. *Secondary Dissociators.* Compared with the primary associators, these beings of enormous antigravity endowment are the reverse workers. There is never any danger that the special or modified forms of physical energy on the local worlds or in the local systems will be

끝없는 공급을 진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덜 알려진 어떤 형태의 물질로부터 유란시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의 어떤 형태의 진화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공간의 연금술사들이며 시간의 놀라운 일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모든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조화우주 최극위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7. 후란달랑크 이들 존재는 세 가지 계층의 에너지-통제 존재들 즉: 1차 그리고 2차 기세조직자들과 힘 지도자들 전체의 공동 창조이다. 후란달랑크들은 전체 주(主)물리통제자들 중 가장 숫자가 많으며; 사타니아에서 기능하는 숫자만 해도 너희의 숫자 개념을 벗어난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 머물고 있으며 물리통제자들 중 비교적 높은 계층들에게 항상 배속되어 있다. 그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 안에서 그리고 외부 공간의 권역들 안에서 상호교대로 기능한다.

후란달랑크들은 기초 우주 무리의 각 형태마다 하나씩 30개 부서로 창조되며, 그들은 살아있고 자동적인 현존과 압력과 속도 계량기로서 배타적으로 기능한다. 살아있는 이 지표들은 모든 형태의 기세-에너지의 상태에 대한 자동적이고 정확한 등록에만 관여한다. 그들은 광대한 반영성 기능구조가 마음적 우주에 관계된 것처럼 물리적 우주에 관계된다. 양적 그리고 질적 에너지 현존 이외에 시간을 등록한 후란달랑크들은 크로놀덱들이라고 불린다.

나는 후란달랑크들이 지능적임을 알지만 그들을 살아있는 기계들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 기능구조들을 너희가 납득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지능체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의 기계 장치들에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너희가 이 존재들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확성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갖고, 오히려 극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더 까다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지능적이고 살아있는 기능구조들(실존개체들)을 우리가 실제로 대우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너희의 상상력에 그림을 그려보라.

제 5 장. 주(主) 기세조직자

기세조직자들은 파라다이스에 거주하지만, 그들은 주(主)우주에 두루 기능하는데, 보다 특별하게는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의 권역들에서 기능한다. 이 비범한 존재들은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니며, 그들은 두 가지 넓은 봉사 부서들을 포함 한다:

1.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exhausted, for these living organizations are endowed with the unique power of evolving limitless supplies of energy. They are chiefly concerned with the evolution of a form of energy which is hardly known on Urantia from a form of matter which is recognized still less. They are truly the alchemists of space and the wonder-workers of time. But in all the wonders they work, they never transgress the mandates of Cosmic Supremacy.

29:4.36 (328.5) 7. *The Frandalanks*. These beings are the joint creation of all three orders of energy-control beings: the primary and secondary force organizers and the power directors. Frandalanks are the most numerous of al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number functioning in Satania alone is beyond your numerical concept. They are stationed on all inhabited worlds and are always attached to the higher orders of physical controllers. They function interchangeably in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d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29:4.37 (328.6) The frandalanks are created in thirty divisions, one for each form of basic universe force, and they function exclusively as living and automatic presence, pressure, and velocity gauges. These living barometers are solely concerned with the automatic and unerring registration of the status of all forms of force-energy. They are to the physical universe what the vast reflectivity mechanism is to the minded universe. The frandalanks that register time in addition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ergy presence are called *chronoldeks*.

29:4.38 (328.7) I recognize that the frandalanks are intelligent, but I cannot classify them as other than living machines. About the only way I can help you to understand these living mechanisms is to compare them to your own mechanical contrivances which perform with almost intelligentlike precision and accuracy. Then if you would conceive of these beings, draw upon your imagination to the extent of recognizing that in the grand universe we actually have intelligent and *living* mechanisms (entities) that can perform more intricate tasks involving more stupendous computations with even greater delicacy of accuracy, even with ultimacy of precision.

5. THE MASTER FORCE ORGANIZERS

29:5.1 (329.1) The force organizers are resident on Paradise, but they function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more particularly in the domains of unorganized space. These extraordinary beings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and they comprise two grand divisions of service:

29:5.2 (329.2) 1.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2.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원시-기세 조종자들인 강력한 이 두 계층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감독 아래에서 배타적으로 일하며, 현재 그들은 대우주의 경계선 안에서 광대하게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1차 주(主)기세조직자들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원시적 또는 기본적 공간-기세들의 조종자들이다; 그들은 성운 창조자들이다. 그들은 공간의 에너지 집진 장치의 살아있는 선동자들이며 이 거대한 현시활동들의 초기 조직자들 그리고 방향 설정자들이다. 이 기세조직자들은 원초기세(직접적인 파라다이스 중력에 응답하지 않는 에너지-이전(以前) 형태)를 1차 또는 강력 에너지, 분별불가 절대자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파라다이스 섬의 중력 지배로 변환하는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그 때 연관-동료 기세조직자들이 그들을 따라오는데, 그들은 1차 단계로부터 2차 단계 또는 중력-에너지 단계를 거쳐 에너지 변형의 과정을 계속한다.

지역우주의 창조를 위한 계획이 완성되면, 창조자 아들의 도착에 의해 신호를 받고, 연관-동료 주(主) 기세 조직자들은 천문상의 사법권을 갖는 초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힘 지도자들의 계층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없을 때에는, 지금도 그들이 외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조 기세조직자들이 이 물리적 창조계를 무기한 책임진다.

주(主)기세조직자들은 오르본톤의 다재다능한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까지도 참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아래에서 기능하고 온도를 견딘다. 외부 공간의 이 영역들에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유형의 계시된 존재들은 단독 메신저들과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뿐이다.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되었음]

Organizers.

29:5.3 (329.3) 2.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29:5.4 (329.4) These two mighty orders of primordial-force manipulators work exclusive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at the present time they do not function extensively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grand universe.

29:5.5 (329.5)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are the manipulators of the primordial or basic space-forc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y are nebulae creators. They are the living instigators of the energy cyclones of space and the early organizers and directionizers of these gigantic manifestations. These force organizers transmute *primordial force* (pre-energy not responsive to direct Paradise gravity) into primary or *puissant energy*, energy transmuting from the exclusiv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o the gravity grasp of the Isle of Paradise. They are thereupon succeeded by the associate force organizers, who continue the process of energy transmutation from the primary through the secondary or *gravity-energy* stage.

29:5.6 (329.6) Upon the completion of the plans for the creation of a local universe, signalized by the arrival of a Creator Son,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give way to the orders of power directors acting in the superuniverse of astronomic jurisdiction. But in the absence of such plans the associate force organizers continue on indefinitely in charge of these material creations, even as they now operate in outer space.

29:5.7 (329.7) The Master Force Organizers withstand temperatures and function under physical conditions which would be intolerable even to the versatil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Orvonton. The only other types of revealed beings capable of functioning in these realms of outer space are the Solitary Messengers and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29:5.8 (329.8)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제 30 편 대우주의 개인성

⇨ 029

유랜시아 책

031 ⇨

부 I.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제 30 편 대우주의 개인성

섹션

소개

제 1 장.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파라다

이스 분류

제 2 장. 유버사 개인성 등록

제 3 장. 우대거류민단

제 4 장. 상승하는 필사자

소개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대우주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개인성들 그리고 개인성-이외의 실존 개체들은 거의 무제한적인 숫자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구성한다. 무수한 하위-유형들 그리고 변형들을 말할 것도 없이, 주요 계층들 그리고 유형들의 숫자만으로도 인간의 상상력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일 것이다. 아무튼, 두 가지 기본 등급의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어떤 것—파라다이스 분류에 대한 암시와 유버사 개인성 등록부의 개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우주의 개인성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전적으로 일관된 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집단들이 모두 계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집단들을 조직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요구되는 더 많은 계시를 다루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추가적 글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적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시된 이 개념들이 공급하는 자극, 창조적 추측을 일으키는 자극을 다음 천년 동안, 생각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을 것이다. 과도한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상상력을 억누른다.

PAPER 30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2.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 The Courtesy Colonies

4. The Ascending Mortals

INTRODUCTION

30:0.1 (330.1) THE personalities and other-than-personal entities now functioning on Paradise and in the grand universe constitute a well-nigh limitless number of living beings. Even the number of major orders and types would stagger the human imagination, let alone the countless subtypes and variations. It is, however, desirable to present something of two basic classifications of living beings — a suggestion of the Paradise classification and an abbreviation of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0:0.2 (330.2) It is not possible to formulate comprehensive and entirely consistent classification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because all of the groups are not revealed. It would require numerous additional papers to cover the further revelation required to systematically classify all groups. Such conceptual expansion would hardly be desirable as it would deprive the thinking mortals of the next thousand years of that stimulus to creative speculation which these partially revealed concepts supply. It is best that man not have an overrevelation; it stifles imagination.

제 1 장.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분류

파라다이스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에 대한 선천적인 관계와 달성된 관계에 따라 분류된다.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광범위한 모임이 있는 동안, 출석한 자들은 종종 기원에 따라 집단을 이룬다: 삼원적 기원에 속한, 또는 삼위일체 달성에 속한 그들; 2원(二元) 기원의 그들; 그리고 단일 기원의 그들.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분류를 필사자 마음에게 설명하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 삼원-기원 존재.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았거나, 명칭이 삼위일체화된 존재들의 모든 집단을 가리키는, 삼위일체화 무리단들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또는 그러한 신(神)들로서, 파라다이스 신(神) 셋 모두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A. 최극 영.

1. 일곱 주(主) 영.
2. 일곱 최극집행자.
3. 반영 영의 일곱 계층.

B. 삼위일체 고정아들.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8. 지혜의 완전자.
9. 신성한 조언자.
- 10 우주 검열자.

C. 삼위일체-기원 그리고 삼위일체화 존재.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2.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3. 하보나 원주민.
4. 파라다이스 시민.
5. 미게시 삼위일체-기원 존재.
6. 미게시 신(神)-삼위일체화 존재.
7. 삼위일체화 달성의 아들.
8.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1.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30:1.1 (330.3) Living beings are classified on Paradise in accordance with inherent and attained relationship to the Paradise Deities. During the grand gathering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those present are often grouped in accordance with origin: those of triune origin, or of Trinity attainment; those of dual origin; and those of single origin.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Paradise classification of living beings to the mortal mind, but we are authorized to present the following:

30:1.2 (330.4) I. TRIUNE-ORIGIN BEINGS. Beings created by all three Paradise Deities, either as such or as the Trinity, together with the Trinitized Corps, which designation refers to all groups of trinitized beings, revealed and unrevealed.

30:1.3 (330.5) A. The Supreme Spirits.

30:1.4 (330.6) 1. The Seven Master Spirits.

30:1.5 (330.7)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30:1.6 (330.8) 3. The Seven Orders of Reflective Spirits.

30:1.7 (330.9) B.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30:1.8 (330.10)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30:1.9 (330.11) 2. Eternals of Days.

30:1.10 (330.12) 3. Ancients of Days.

30:1.11 (330.13) 4. Perfections of Days.

30:1.12 (331.1) 5. Recents of Days.

30:1.13 (331.2) 6. Unions of Days.

30:1.14 (331.3) 7. Faithfuls of Days.

30:1.15 (331.4) 8. Perfectioners of Wisdom.

30:1.16 (331.5) 9. Divine Counselors.

30:1.17 (331.6) 10. Universal Censors.

30:1.18 (331.7) C. Trinity-origin and Trinitized Beings.

30:1.19 (331.8) 1. Trinity Teacher Sons.

30:1.20 (331.9) 2. Inspired Trinity Spirits.

30:1.21 (331.10) 3. Havona Natives.

30:1.22 (331.11) 4. Paradise Citizens.

30:1.23 (331.12) 5. Unrevealed Trinity-origin Beings.

30:1.24 (331.13) 6. Unrevealed Deity-trinitized Beings.

30:1.25 (331.14) 7. Trinitized Sons of Attainment.

30:1.26 (331.15) 8.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9. 삼위일체화 완전의 아들.

10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

II. 2원(二元)-기원 존재.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둘 안에서 기원되거나 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강한 존재들 중 어느 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A. 하강하는 계층.

1. 창조자 아들.

2. 치안법관 아들.

3. 빛나는 새벽별.

4. 아버지 멜기세덱.

5. 멜기세덱.

6. 보론다텍.

7. 라노난텍.

8. 찬란한 저녁별.

9. 천사장.

10 생명운반자.

11 미게시 우주 도움자.

12 미게시 하느님의 아들.

B. 고정된 계층.

1. 아반돈터.

2. 수사시아.

3. 유니비타시아.

4. 스피롱가.

5. 미게시 이원(二元)-기원 존재.

C. 상승하는 계층.

1. 조절자-융합 필사자.

2. 아들-융합 필사자.

3. 영-융합 필사자.

4. 전환된 중도자.

5. 미게시 상승자.

III. 단일-기원 존재. 파라다이스 신(神)들 중 어느 하나 안에서 기원된 자들 또는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강한 어느 한 존재에 의해 다르게 창조된 존재들.

A. 최극 영.

1. 중력 메신저.

2. 하보나 일곱 순환회로 영.

3. 하보나 순환회로 12중 보조자.

30:1.27 (331.16) 9. Trinitized Sons of Perfection.

30:1.28 (331.17) 10. Creature-trinitized Sons.

30:1.29 (331.18) II. *DUAL-ORIGIN BEINGS*. Those of origin in any two of the Paradise Deities or otherwise created by any two beings of direct or indirect descent from the Paradise Deities.

30:1.30 (331.19) A. *The Descending Orders*.

30:1.31 (331.20) 1. Creator Sons.

30:1.32 (331.21) 2. Magisterial Sons.

30:1.33 (331.22) 3. Bright and Morning Stars.

30:1.34 (331.23) 4. Father Melchizedeks.

30:1.35 (331.24) 5. The Melchizedeks.

30:1.36 (331.25) 6. The Vorondadeks.

30:1.37 (331.26) 7. The Lanonandeks.

30:1.38 (331.27) 8. Brilliant Evening Stars.

30:1.39 (331.28) 9. The Archangels.

30:1.40 (331.29) 10. Life Carriers.

30:1.41 (331.30) 11. Unrevealed Universe Aids.

30:1.42 (331.31) 12. Unrevealed Sons of God.

30:1.43 (331.32) B. *The Stationary Orders*.

30:1.44 (331.33) 1. Abandoners.

30:1.45 (331.34) 2. Susatia.

30:1.46 (331.35) 3. Univitatia.

30:1.47 (331.36) 4. Spironga.

30:1.48 (331.37) 5. Unrevealed Dual-origin Beings.

30:1.49 (331.38) C. *The Ascending Orders*.

30:1.50 (331.39) 1. Adjuster-fused Mortals.

30:1.51 (331.40) 2. Son-fused Mortals.

30:1.52 (331.41) 3. Spirit-fused Mortals.

30:1.53 (331.42) 4. Translated Midwayers.

30:1.54 (331.43) 5. Unrevealed Ascenders.

30:1.55 (332.1) III. *SINGLE-ORIGIN BEINGS*. Those of origin in any one of the Paradise Deities or otherwise created by any one being of direct or indirect descent from the Paradise Deities.

30:1.56 (332.2) A. *The Supreme Spirits*.

30:1.57 (332.3) 1. Gravity Messengers.

30:1.58 (332.4) 2. The Seven Spirits of the Havona Circuits.

30:1.59 (332.5) 3. The Twelfold Adjutants of the Havona Circuits.

4. 반영 영상 도움자.

5. 우주 어머니 영.

6. 칠중 보조 마음-영.

7. 미(未)게시 신(神)-기원 존재.

B. 상승하는 계층.

1.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2. 상승하는 물질아들.

3. 진화 세라핌천사.

4. 진화적 케루빔.

5. 미게시 상승자.

C. 무한한 영의 가족.

1. 단독 메신저.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3. 인구조사 지도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5. 연합-동료 검열자.

6. 배정된 파수자.

7. 졸업생 안내자.

8. 하보나 봉사원.

9. 우주화해자.

10. 모론시아 동행자.

11 초(超)천사.

12 2품천사.

13 3품천사.

14 전(全)천사.

15 세라핌천사.

16 케루빔들 그리고 사노빔.

17 미게시 영-기원 존재.

18 일곱 최극 힘 지도자.

19 최극 힘 중심.

20 주(主)물리통제자.

21 모론시아 힘 감독자.

IV. 결국 생겨난 초월의 존재. 그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할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대개 그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는 초월자의 거대한 무리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니며; 그들은 결국 생겨난 신성과 궁극위와 영원의 자녀들이다. 이 “결국 생겨나는 자들”은 유한

30:1.60 (332.6) 4. The Reflective Image Aids.

30:1.61 (332.7) 5. Universe Mother Spirits.

30:1.62 (332.8) 6. The Sevenfold Adjutant Mind-Spirits.

30:1.63 (332.9) 7. Unrevealed Deity-origin Beings.

30:1.64 (332.10) B. *The Ascending Orders.*

30:1.65 (332.11) 1. Personalized Adjusters.

30:1.66 (332.12) 2. Ascending Material Sons.

30:1.67 (332.13) 3. Evolutionary Seraphim.

30:1.68 (332.14) 4. Evolutionary Cherubim.

30:1.69 (332.15) 5. Unrevealed Ascenders.

30:1.70 (332.16) C.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30:1.71 (332.17) 1. Solitary Messengers.

30:1.72 (332.18)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30:1.73 (332.19) 3. Census Directors.

30:1.74 (332.20)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30:1.75 (332.21) 5. Associate Inspectors.

30:1.76 (332.22) 6. Assigned Sentinels.

30:1.77 (332.23) 7. Graduate Guides.

30:1.78 (332.24) 8. Havona Servitals.

30:1.79 (332.25) 9. Universal Conciliators.

30:1.80 (332.26) 10. Morontia Companions.

30:1.81 (332.27) 11. Supernaphim.

30:1.82 (332.28) 12. Seconaphim.

30:1.83 (332.29) 13. Tertiaphim.

30:1.84 (332.30) 14. Omniaphim.

30:1.85 (332.31) 15. Seraphim.

30:1.86 (332.32) 16. Cherubim and Sanobim.

30:1.87 (332.33) 17. Unrevealed Spirit-origin Beings.

30:1.88 (332.34) 18.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30:1.89 (332.35) 19. The Supreme Power Centers.

30:1.90 (332.36) 20.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30:1.91 (332.37) 21.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30:1.92 (332.38) IV. *EVENTUATED*

TRANSCENDENTAL BEINGS. There is to be found on Paradise a vast host of transcendental beings whose origin is not ordinarily disclos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until they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se Transcendentals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they are the

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그들은 아(亞)절대적이고, 아(亞)절대성은 무한성도 아니고 절대성도 아니다.

창조되지 않은 이 비(非) 창조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늘 충성하고 궁극자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개인성 활동의 네 궁극적 차원들에서 실존하고, 각각 일곱 등급의 1,000개 주요 활동 집단들로 이루어지는 12개 광역 부서들 안에 있는 아(亞)절대의 일곱 차원들에서 기능적이다. 결국 생겨난 이 존재들은 다음의 계층들을 포함된다:

1.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2. 초월 기록자.
3. 다른 초월자.
4.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
5.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

하느님은, 초(超)개인으로서, 결국 생겨나며; 하느님은, 개인으로서, 창조한다; 하느님은, 전(前)개인적 존재로서, 단편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단편 조절자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의 아버지다운 행동에 의해, 그 어떤 필사 창조체에게 증여되어 온 개인성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따라 물질적이고 필사인 마음 위에 영(靈) 혼(魂)을 진화시킨다.

V. 신(神)의 단편화된 실존개체. 살아있는 실존의 이 계층은, 우주 아버지 안에서 생기는 데, 생 각 조절자들에 의해 가장 잘 예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존개체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개인적 실체의 유일한 단편들이 결코 아니다. 조절자-이외의 단편들의 기능들은 다양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절자 또는 그러한 다른 단편과의 결합은 그 창조체를 아버지-융합 존재가 되게 한다.

아버지 단편들에게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마음 영의 단편들은 여기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한 실존개체들은 조절자들과 매우 크게 다르며; 그들은 영성별에 그렇게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중력 순환회로들을 그렇게 횡단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 필사 창조체들 속에 거주하지도 않는다. 조절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개념에서 보면 그들은 전(前)개인적은 아니지만, 전(前)마음 영의 그러한 단편들은 생존되는 일정한 필사자들에게 증여되고, 그러한 결합은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대비하여 그들을 영-융합 필사자들이 되게 한다.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것은 창조자 아들의 개별 존재화된 영인데, 그것과의 연합은 창조체를 아들-융합 필사자가 되게 한다. 신(神)의 또 다른 단편들이 있다.

eventuated children of divinity, ultimacy, and eternity. These “eventuators” are neither finite nor infinite — they are *absonite*; and absonity is neither infinity nor absoluteness.

30:1.93 (333.1) These uncreated noncreators are ever loyal to the Paradise Trinity and obedient to the Ultimate. They are existent on four ultimate levels of personality activity and are functional on the seven levels of the absonite in twelve grand divisions consisting of one thousand major working groups of seven classes each. These eventuated beings include the following orders:

- 30:1.94 (333.2) 1.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 30:1.95 (333.3) 2. Transcendental Recorders.
- 30:1.96 (333.4) 3. Other Transcendentals.
- 30:1.97 (333.5) 4.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 30:1.98 (333.6) 5.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30:1.99 (333.7) God, as a superperson, eventuates; God, as a person, creates; God, as a preperson, fragments; and such an Adjuster fragment of himself evolves the spirit soul upon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in accordance with the freewill choosing of the personality which has been bestowed upon such a mortal creature by the parental act of God as a Father.

30:1.100 (333.8) V. FRAGMENTED ENTITIES OF DEITY. This order of living existence, originating in the Universal Father, is best typified by the Thought Adjusters, though these entities are by no means the only fragmentations of the prepersonal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functions of the other-than-Adjuster fragments are manifold and little known. Fusion with an Adjuster or other such fragment constitutes the creature a *Father-fused being*.

30:1.101 (333.9) The fragmentations of the premind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ough hardly comparable to the Father fragments, should be here recorded. Such entities differ very greatly from Adjusters; they do not as such dwell on Spiritington, nor do they as such traverse the mind-gravity circuits; neither do they indwell mortal creatures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y are not prepersonal in the sense that the Adjusters are, but such fragments of premind spirit are bestowed upon certain of the surviving mortals, and fusion therewith constitutes them *Spirit-fused mortals* in contradistinction to Adjuster-fused mortals.

30:1.102 (333.10) Still more difficult of description is the individualized spirit of a Creator Son, union with which constitutes the creature a *Son-fused mortal*. And there are still other fragmentations of Deity.

VI. 초(超)개인적 존재. 개인적이-아닌 신성한 기원을 갖는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광대한 무리가 있다. 이 존재들 중 일부는 아들의 파라다이스 세계들에 거주 한다; 나머지는, 영원한 아들의 초개인적 대표자들처럼,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이 글들 안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개인적 창조체들에게 그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아주 무익할 것이다.

VII. 분류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계층. 개인적이든 아니든 모든 존재들을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한 분류들 안에 넣는 것은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주들이 이 글들 안에 모두 계시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많은 계층들이 이 목록 표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1. 우주 운명 완료자.
2. 분별된 궁극자 대관.
3.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
4.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미(未)계시 창조 대리자
5. 파라다이스 장엄자.
6. 장엄자의 이름없는 연락 반영자.
7. 지역우주들의 아(亞)중간 계층.

이들 중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밝혀진 것처럼 파라다이스 분류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이 계층들이 함께 열거된 목록 표에 아무런 특별한 의의(意義)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분류되지 않은 소수이다; 너희는 계시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 아직 배운 바 없다.

영들 즉: 영 실존개체들, 영 현존들, 개인적 영들, 전(前)개인적 영들, 초(超)개인적 영들, 영 실존들, 영 개인성들이 존재하지만—필사자 언어도 인간 지성도 충분치 못하다. 아무튼 우리는 “순수 마음”의 개인성들이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 어떤 실존개체도 영이신 하느님에 의해 그것을 자질로서 부여받지 않으면 개인성을 가질 수 없다. 영적 에너지 또는 물리적 에너지와 연관되지 않은 어떤 마음 실존개체이든지 개인성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소유한 영 개인성들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영을 소유한 마음 개인성들이 있다. 장엄자와 그의 동료들은 마음-지배 존재들에 대한 상당히 좋은 예이지만,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나은 실례(實例)들이 있다. 마음 개인성들과 같은 전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도 있지만, 그들은 항상 연관된 영이다. 계시되지 않은 일정한 다른 창조체들은 마음적- 그리고 물리적-에너지 개인성들이라고 명명될만한 어떤 것들이다. 이 존

30:1.103 (333.11) VI. SUPERPERSONAL BEINGS.

There is a vast host of other-than-personal beings of divine origin and of manifold servic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Certain of these beings are resident on the Paradise worlds of the Son; others, like the super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Eternal Son, are encountered elsewhere. They are for the most part unmentioned in these narratives, and it would be quite futile to attempt their description to *personal* creatures.

30:1.104 (333.12) VII. UNCLASSIFIED AND UNREVEALED ORDERS.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place all beings, personal or otherwise, within classifications pertaining to the present universe age; nor have all such categories been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hence numerous orders have been omitted from these lists. Consider the following:

30:1.105 (333.13)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30:1.106 (333.14)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30:1.107 (334.1)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30:1.108 (334.2) The Unrevealed Creative Agencies of the Ancients of Days.

30:1.109 (334.3) Majeston of Paradise.

30:1.110 (334.4) The Unnamed Reflectivator Liaisons of Majeston.

30:1.111 (334.5) The Midsonite Orders of the Local Universes.

30:1.112 (334.6) No especial significance need attach to the listing of these orders together except that none of them appear in the Paradise classification as revealed herein. These are the unclassified few; you have yet to learn of the unrevealed many.

30:1.113 (334.7) There are spirits: spirit entities, spirit presences, personal spirits, prepersonal spirits, superpersonal spirits, spirit existences, spirit personalities — but neither mortal language nor mortal intellect are adequate. We may however state that there are no personalities of “pure mind”; no entity has personality unless he is endowed with it by God who is spirit. Any mind entity that is not associated with either spiritual or physical energy is not a personality. But in the same sense that there are spirit personalities who have mind there are mind personalities who have spirit. Majeston and his associates are fairly good illustrations of mind-dominated beings, but there are better illustrations of this type of personality unknown to you. There are even whole unrevealed orders of such *mind personalities*, but they are always spirit associated. Certain other unrevealed

재 유형은 영 중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버지의 순환회로 안에 있는, 참된 개인성이다.

이 글들은, 시간의 우주들 안에서 그리고 영원의 중앙우주 안에서 때를 지어 모여서, 봉사하고 살아가며 경배하는, 살아있는 창조체들과 창조자들과 결국 생겨나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다르게-실존하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규명하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할 수 없다. 너희 필사자들은 개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성구현된 존재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아(亞)절대화된 존재를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제 2 장. 유버사 개인성 등록

살아있는 존재들의 신성한 가족은 크게 일곱 부서들 안에서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다:

1. 파라다이스 신(神).
2. 최극 영.
3. 삼위일체-기원 존재.
4. 하느님의 아들.
5. 무한한 영의 개인성.
6. 우주 힘 지도자.
7. 영구시민신분의 무리단.

의지 창조체들인 이 집단들은 수많은 등급과 작은 소분과로 나뉘어 있다. 대우주의 그 개인성들에 대한 이 분류의 제시는 이 글들에서 제시되어 온 지능 존재들의 그 계층들을 진술하는 일에만 주로 관여되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파라다이스를 향한 그들의 진보적 상승에 있어서 시간의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체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목록은 필사자 상승 기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대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I. 파라다이스 신(神).
1. 우주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 II. 최극 영.
1. 일곱 주(主) 영.
2. 일곱 최극집행자.
3. 반영 영의 일곱 집단.

creatures are what might be termed *mindal- and physical-energy personalities*. This type of being is nonresponsive to spirit gravity but is nonetheless a true personality — is within the Father's circuit.

30:1.114 (334.8) These papers do not — cannot — even begin to exhaust the story of the living creatures, creators, eventuators, and still-otherwise-existent beings who live and worship and serve in the swarming universes of tim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You mortals are persons; hence we can describe beings who are *personalized*, but how could an *absonitized* being ever be explained to you?

2. THE UVERSA PERSONALITY REGISTER

30:2.1 (334.9) The divine family of living beings is registered on Uversa in seven grand divisions:

- 30:2.2 (334.10) 1. The Paradise Deities.
- 30:2.3 (334.11) 2. The Supreme Spirits.
- 30:2.4 (334.12) 3. The Trinity-origin Beings.
- 30:2.5 (334.13) 4. The Sons of God.
- 30:2.6 (334.14) 5.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30:2.7 (334.15) 6.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 30:2.8 (334.16) 7. The Corps of Permanent Citizenship.

30:2.9 (334.17) These groups of will creatures are divided into numerous classes and minor subdivisions. The presentation of this classification of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is however chiefly concerned in setting forth those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who have been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most of whom will be encountered in the ascendant experience of the mortals of time on their progressive climb to Paradise. The following listings make no mention of vast orders of universe beings who carry forward their work apart from the mortal ascension scheme.

- 30:2.10 (335.1) I. THE PARADISE DEITIES.
- 30:2.11 (335.2) 1. The Universal Father.
- 30:2.12 (335.3) 2. The Eternal Son.
- 30:2.13 (335.4) 3. The Infinite Spirit.
- 30:2.14 (335.5) II. THE SUPREME SPIRITS.
- 30:2.15 (335.6) 1. The Seven Master Spirits.
- 30:2.16 (335.7) 2.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 30:2.17 (335.8) 3. The Seven Groups of Reflective Spirits.

4. 반영 영상 도움자.

5. 일곱 순환회로 영.

6. 지역우주 창조 영.

7. 보조 마음-영.

III. 삼위일체-기원 존재.

1. 최극위의 삼위일체화된 비밀.

2. 영원으로 늘 계신이.

3. 옛적으로 늘 계신이.

4. 완전으로 늘 계신이.

5. 요즈음으로 늘 계신이.

6. 연합으로 늘 계신이.

7. 충심으로 늘 계신이.

8. 삼위일체 교사 아들.

9. 지혜의 완전자.

10. 신성한 조언자.

11. 우주 검열자.

12.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13. 하보나 원주민.

14. 파라다이스 시민.

IV. 하느님의 아들.

A. 하강하는 아들.

1. 창조자 아들들—미가엘.

2. 치안법관 아들들—아보날.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데이날.

4. 멜기세덱 아들.

5. 보론다텍 아들.

6. 라노난텍 아들.

7. 생명운반자 아들.

B. 상승하는 아들.

1. 아버지-융합 필사자.

2. 아들-융합 필사자.

3. 영-융합 필사자.

4. 진화 세라핌천사.

5. 상승하는 물질아들.

6. 변형된 중도자.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C. 삼위일체화 아들.

30:2.18 (335.9) 4. The Reflective Image Aids.

30:2.19 (335.10) 5. The Seven Spirits of the Circuits.

30:2.20 (335.11) 6.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s.

30:2.21 (335.12) 7. Adjutant Mind-Spirits.

30:2.22 (335.13) III. THE TRINITY-ORIGIN BEINGS.

30:2.23 (335.14)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30:2.24 (335.15) 2. Eternals of Days.

30:2.25 (335.16) 3. Ancients of Days.

30:2.26 (335.17) 4. Perfections of Days.

30:2.27 (335.18) 5. Recents of Days.

30:2.28 (335.19) 6. Unions of Days.

30:2.29 (335.20) 7. Faithfuls of Days.

30:2.30 (335.21) 8. Trinity Teacher Sons.

30:2.31 (335.22) 9. Perfectioners of Wisdom.

30:2.32 (335.23) 10. Divine Counselors.

30:2.33 (335.24) 11. Universal Censors.

30:2.34 (335.25) 12. Inspired Trinity Spirits.

30:2.35 (335.26) 13. Havona Natives.

30:2.36 (335.27) 14. Paradise Citizens.

30:2.37 (335.28) IV. THE SONS OF GOD.

30:2.38 (335.29) A. Descending Sons.

30:2.39 (335.30) 1. Creator Sons — Michaels.

30:2.40 (335.31) 2. Magisterial Sons — Avonals.

30:2.41 (335.32) 3. Trinity Teacher Sons — Daynals.

30:2.42 (335.33) 4. Melchizedek Sons.

30:2.43 (335.34) 5. Vorondadek Sons.

30:2.44 (335.35) 6. Lanonandek Sons.

30:2.45 (335.36) 7. Life Carrier Sons.

30:2.46 (335.37) B. Ascending Sons.

30:2.47 (335.38) 1. Father-fused Mortals.

30:2.48 (335.39) 2. Son-fused Mortals.

30:2.49 (335.40) 3. Spirit-fused Mortals.

30:2.50 (335.41) 4. Evolutionary Seraphim.

30:2.51 (335.42) 5. Ascending Material Sons.

30:2.52 (335.43) 6. Translated Midwayers.

30:2.53 (335.44) 7. Personalized Adjusters.

30:2.54 (336.1) C. Trinitized Sons.

1. 막강한 메신저.
 2. 높은 권한자.
 3. 이름-번호 없는 자.
 4. 삼위일체화 보호관리자.
 5. 삼위일체화 대사.
 6. 천상의 수호자.
 7. 높은 아들 보좌관.
 8.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
 9. 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
 - 10 삼위일체화 운명의 아들.
- V. 무한한 영의 개인성.
- A.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
1. 단독 메신저.
 2.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
 3. 인구조사 지도자.
 4.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5. 연관 동료 검열자.
 6. 배정된 파수자.
 7. 졸업생 안내자.
- B. 공간의 메신저 무리.
1. 하보나 봉사원.
 2. 우주적 화해자.
 3. 기술 충고자.
 4. 파라다이스에 있는 기록보호관리자.
 5. 천상의 기록자.
 6. 모론티아 동행자.
 7. 파라다이스 동행자.
- C. 사명활동 영.
1. 초(超)천사.
 2. 2품천사.
 3. 3품천사.
 4. 전(全)천사.
 5. 세라핌천사.
 6. 케루빔들 그리고 사노빔.
 7. 중도자.
- VI. 우주 힘 지도자.
- 30:2.55 (336.2) 1. Mighty Messengers.
- 30:2.56 (336.3) 2. Those High in Authority.
- 30:2.57 (336.4) 3. Those without Name and Number.
- 30:2.58 (336.5) 4. Trinitized Custodians.
- 30:2.59 (336.6) 5. Trinitized Ambassadors.
- 30:2.60 (336.7) 6. Celestial Guardians.
- 30:2.61 (336.8) 7. High Son Assistants.
- 30:2.62 (336.9) 8. Ascender-trinitized Sons.
- 30:2.63 (336.10) 9.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 30:2.64 (336.11) 10. Trinitized Sons of Destiny.
- 30:2.65 (336.12) V.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30:2.66 (336.13) A.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 30:2.67 (336.14) 1. Solitary Messengers.
- 30:2.68 (336.15) 2. Universe Circuit Supervisors.
- 30:2.69 (336.16) 3. Census Directors.
- 30:2.70 (336.17) 4.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 30:2.71 (336.18) 5. Associate Inspectors.
- 30:2.72 (336.19) 6. Assigned Sentinels.
- 30:2.73 (336.20) 7. Graduate Guides.
- 30:2.74 (336.21) B.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 30:2.75 (336.22) 1. Havona Servitals.
- 30:2.76 (336.23) 2. Universal Conciliators.
- 30:2.77 (336.24) 3. Technical Advisers.
- 30:2.78 (336.25) 4. Custodians of Records on Paradise.
- 30:2.79 (336.26) 5. Celestial Recorders.
- 30:2.80 (336.27) 6. Morontia Companions.
- 30:2.81 (336.28) 7. Paradise Companions.
- 30:2.82 (336.29) C. *The Ministering Spirits.*
- 30:2.83 (336.30) 1. Supernaphim.
- 30:2.84 (336.31) 2. Seconaphim.
- 30:2.85 (336.32) 3. Tertiaphim.
- 30:2.86 (336.33) 4. Omniaphim.
- 30:2.87 (336.34) 5. Seraphim.
- 30:2.88 (336.35) 6. Cherubim and Sanobim.
- 30:2.89 (336.36) 7. Midwayers.
- 30:2.90 (336.37) VI.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 일곱 최극 힘 지도자.

B. 최극 힘 중심.

1. 최극 중앙 감독관.

2. 하보나 중심.

3. 초우주 중심.

4. 지역우주 중심.

5. 별자리 중심.

6. 체계중심.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C. 주(主)물리통제자.

1. 연관-동료 힘 지도자.

2. 기계적 통제자.

3. 에너지 변환자.

4. 에너지 전송자.

5. 1차 연관자.

6. 2차 분리자.

7. 후란달랑크 그리고 크로놀덱.

D. 모론시아 힘 감독자.

1. 순환회로 규제자.

2. 체계 조화-협동자.

3. 행성 보호관리자.

4. 병합된 통제자.

5. 연락 안정자.

6. 선택 분류자.

7. 연관-동료 등록자.

VII. 영구 시민신분의 무리단.

1. 행성 중도자.

2. 체계들의 아담의 아들.

3. 별자리 유니비타시아.

4. 지역우주 수사시아.

5. 지역우주들의 영-융합 필사자.

6. 초우주 아반돈터.

7. 초우주들의 아들-융합 필사자.

8. 하보나 원주민.

9. 영의 파라다이스 구체 원주민.

30:2.91 (336.38) A.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30:2.92 (336.39) B. *Supreme Power Centers.*

30:2.93 (336.40) 1. *Supreme Center Supervisors.*

30:2.94 (336.41) 2. *Havona Centers.*

30:2.95 (336.42) 3. *Superuniverse Centers.*

30:2.96 (336.43) 4. *Local Universe Centers.*

30:2.97 (336.44) 5. *Constellation Centers.*

30:2.98 (336.45) 6. *System Centers.*

30:2.99 (336.46) 7. *Unclassified Centers.*

30:2.100 (337.1) C. *Master Physical Controllers.*

30:2.101 (337.2) 1. *Associate Power Directors.*

30:2.102 (337.3) 2. *Mechanical Controllers.*

30:2.103 (337.4) 3. *Energy Transformers.*

30:2.104 (337.5) 4. *Energy Transmitters.*

30:2.105 (337.6) 5. *Primary Associators.*

30:2.106 (337.7) 6. *Secondary Dissociators.*

30:2.107 (337.8) 7. *Frandalanks and Chronoldeks.*

30:2.108 (337.9) D. *Morontia Power Supervisors.*

30:2.109 (337.10) 1. *Circuit Regulators.*

30:2.110 (337.11) 2. *System Co-ordinators.*

30:2.111 (337.12) 3. *Planetary Custodians.*

30:2.112 (337.13) 4. *Combined Controllers.*

30:2.113 (337.14) 5. *Liaison Stabilizers.*

30:2.114 (337.15) 6. *Selective Assorters.*

30:2.115 (337.16) 7. *Associate Registrars.*

30:2.116 (337.17) VII. *THE CORPS OF PERMANENT CITIZENSHIP.*

30:2.117 (337.18) 1. *The Planetary Midwayers.*

30:2.118 (337.19) 2. *The Adamic Sons of the Systems.*

30:2.119 (337.20) 3. *The Constellation Univitatia.*

30:2.120 (337.21) 4. *The Local Universe Susatia.*

30:2.121 (337.22) 5. *Spirit-fused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s.*

30:2.122 (337.23) 6. *The Superuniverse Abandoners.*

30:2.123 (337.24) 7. *Son-fused Mortals of the Superuniverses.*

30:2.124 (337.25) 8. *The Havona Natives.*

30:2.125 (337.26) 9. *Natives of the Paradise Spheres of the Spirit.*

10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구체 원주민.

11 파라다이스의 창조된 시민.

12 파라다이스의 조절자-융합 필사자 시민.

그것들이 유버사의 본부 세계에 있는 기록에 속해 있듯이 이것은 우주들의 개인성에 대한 실용적 분류이다.

혼합 개인성 집단. 유버사에는 수많은 추가적 집단들의 지능 존재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 역시 대우주의 조직과 관리-행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계층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혼합 개인성 집단들이 있다:

A.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

1.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
2. 파라다이스 최종자 무리단.
3.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4.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5.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
6. 초월적 최종자 무리단.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들의 무리단.

최종의 필사자 무리단은 다음에 있는 그리고 1부의 마지막에 있는 글에서 취급된다.

B. 우주 도움자.

1. 빛나는 새벽별.
2. 찬란한 저녁별.
3. 천사장.
4. 지고(至高)보좌관.
5. 높은 위원.
6. 천상의 감독자.
7. 맨션세계 교사.

지역우주와 초우주 둘 모두의 모든 본부 세계들에서는, 지역우주 통치자들인 창조자 아들들을 위한 특별한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우주 도움자들을 유버사에서 맞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그러한 밀사(密使)들은 창조자 아들들의 권한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추진하고 그들의 관찰 업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너희 지역우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더 충분히 설명된다.

30:2.126 (337.27) 10. Natives of the Father's Paradise Spheres.

30:2.127 (337.28) 11. The Created Citizens of Paradise.

30:2.128 (337.29) 12. Adjuster-fused Mortal Citizens of Paradise.

30:2.129 (337.30) This is the working classification of the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s as they are of recor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Uversa.

30:2.130 (337.31) *COMPOSITE PERSONALITY GROUPS.* There are on Uversa the records of numerous additional groups of intelligent beings, beings that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mong such orders are the following three composite personality groups:

30:2.131 (337.32) A.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 30:2.132 (337.33) 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 30:2.133 (337.34) 2. The Corps of Paradise Finaliters.
- 30:2.134 (337.35) 3.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 30:2.135 (337.36) 4.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 30:2.136 (337.37) 5.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 30:2.137 (337.38) 6.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 30:2.138 (337.39) 7. The Corps of Unrevealed Sons of Destiny.

30:2.139 (337.40)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is dealt with in the next and final paper of this series.

30:2.140 (338.1) B. *The Universe Aids.*

- 30:2.141 (338.2) 1. Bright and Morning Stars.
- 30:2.142 (338.3) 2. Brilliant Evening Stars.
- 30:2.143 (338.4) 3. Archangels.
- 30:2.144 (338.5) 4. Most High Assistants.
- 30:2.145 (338.6) 5. High Commissioners.
- 30:2.146 (338.7) 6. Celestial Overseers.
- 30:2.147 (338.8) 7. Mansion World Teachers.

30:2.148 (338.9) On all headquarters worlds of both local and superuniverses, provision is made for these beings who are engaged in specific missions for the Creator Sons, the local universe rulers. We welcome these *Universe Aids* on Uversa, but we have no jurisdiction over them. Such emissaries prosecute their work and carry on their observations under authority of the Creator Sons. Their activities are more fully described in the narrative of your local universe.

C. 일곱 우대거류민단.

1. 별 연구자.
2. 천상의 거장.
3. 복귀 지도자.
4. 연장-학교 강사.
5. 다양한 예비무리단.
6. 학생 방문자.
7. 상승하는 순례자.

이 일곱 집단의 존재들은 지역체계들로부터 초우주들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후자의, 모든 본부 세계들에서 그렇게 조직되고 통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 초우주의 수도들은 거의 모든 등급과 계층의 지능 존재들이 모이는 장소들이다. 파라다이스-하보나 주민들의 수많은 집단들은 제외하고, 실존하는 각 위상의 의지적 창조체들이 관찰되고 연구될 수 있다.

제 3 장. 우대거류민단

일곱 우대거류민단은 그들의 임무 추진에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함에 참여하는 동안 비교적 긴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안 건축 구체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별 연구자들은, 천상의 천문학자들인데, 유버사와 비슷한 구체들 위에서 활동할 것을 선택하며 그것은 특별히 건축된 그러한 세계들이 그들의 관찰과 계산을 위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버사는 이 거류민단의 활동에 유리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 위치한 때문만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들을 교란시킬 만큼 가까운 곳에 거대한 살아있거나 죽은 태양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자들은 초우주의 관련사들과 어떤 면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손님들일 뿐이다.

유버사의 천문상의 거류민단은 근처에 있는 여러 영역들로부터, 중앙우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시아텍으로부터 오는 개별존체들을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체계 안에 있는 어떤 세계 위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별 연구자가 될 수 있는데, 천상의 천문학자들의 어떤 무리단에 가담하기를 열망할 수 있다. 유일한 필요조건들은: 계속적인 삶을 사는 것과, 공간의 세계들에 대한, 특별히 진화와 통제의 물리적 법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다. 별 연구자들은 이 무리단 안에서 영구적으로 봉사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집단에 받아들여진 어느 누구도 유버사 시간으로 1,000년 안에 그만 둘 수 없다.

유버사의 별-관찰자 거류민단은 현재 백만 명

30:2.149 (338.10) C. *The Seven Courtesy Colonies.*

30:2.150 (338.11) 1. Star Students.

30:2.151 (338.12) 2. Celestial Artisans.

30:2.152 (338.13) 3. Reversion Directors.

30:2.153 (338.14) 4. Extension-school Instructors.

30:2.154 (338.15) 5. The Various Reserve Corps.

30:2.155 (338.16) 6. Student Visitors.

30:2.156 (338.17) 7. Ascending Pilgrims.

30:2.157 (338.18) These seven groups of beings will be found thus organized and governed on all headquarters worlds from the local systems up to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particularly the latter. The capital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the meeting places for almost all classes and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With the exception of numerous groups of Paradise-Havoners, here the will creatures of every phase of existence may be observed and studied.

3. THE COURTESY COLONIES

30:3.1 (338.19) The seven courtesy colonies sojourn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for a longer or shorter time while engaged in the furtherance of their missions and in the execution of their special assignments. Their work may be described as follows:

30:3.2 (338.20) 1. *The Star Students*, the celestial astronomers, choose to work on spheres like Uversa because such specially constructed worlds are unusually favorable for their observations and calculations. Uversa is favorably situated for the work of this colony, not only because of its central location, but also because there are no gigantic living or dead suns near at hand to disturb the energy currents. These students are not in any manner organically connected with the affairs of the superuniverse; they are merely guests.

30:3.3 (338.21) The astronomical colony of Uversa contains individuals from many near-by realms, from the central universe, and even from Norlatiadek. Any being on any world in any system of any universe may become a star student, may aspire to join some corps of celestial astronomers. The only requisites are: continuing life an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orlds of space, especially their physical laws of evolution and control. Star students are not required to serve eternally in this corps, but no one admitted to this group may withdraw under one millennium of Uversa time.

30:3.4 (339.1) The star-observer colony of Uversa

에 이른다. 일부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머물기는 하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들은 수많은 기계적 도구들과 물리적 장비들의 도움을 얻어 그들의 일을 수행 한다; 그들은 또한 단독 메신저들 그리고 다른 영 탐험가들에 의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는다. 이 천상의 천문학자들은 별 연구와 공간 측량을 하는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살아있는 에너지 변환자들 그리고 전송자들을,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반영 개인성들을 계속 사용한다. 그들은 공간 물질과 에너지 현시 활동들의 모든 형태들 그리고 위상들 모두를 연구한다; 전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조사를 벗어날 수 없다.

비슷한 천문학자 거류민단이 그 초우주의 구역 본부들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우주들 그리고 그들의 행정-관리적 하위 부서들의 고안건축의 수도들에서도 발견되게 되어 있다. 파라다이스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은 선천적이지 않는다; 물리적 우주에 대한 납득은 주로 관찰과 연구에 의존한다.

2. 천상의 거장은 일곱 초우주들에 두루 봉사한다. 상승하는 인간들은 이 기능공들이 더 충만하게 논의되어지는 것과 관련된 그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생애 안에서 이 집단들과 처음 접촉을 갖는다.

3. 복귀 지도자들은 이완-휴식과 유머를 증진시키는—과거 기억들로의 복귀—자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모론시아 변형 그리고 영 체험의 초기 위상들 동안, 필사자 진보의 상승하는 기획의 실천적 작동에 있어서 큰 봉사를 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우주에서의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글에 속한다.

4. 연장-학교 강사. 상승하는 생애 중 바로 다음으로 높은 거주 세계는 바로 아래 세계에 강력한 교사 무리단, 그 구체의 진보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를 항상 유지 한다; 이것은 시간의 순례자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상승 기획의 한 위상이다. 이 학교들은, 교습과 시험에 대한 그들의 방법들은, 유란시아에서 행위로 이끌어 보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

필사자 진보의 상승 계획 전체가 새로운 진리와 체험을 획득하자마자 곧 바로 다른 존재들에게 내어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너희는 진보의 눈금 안에서 바로 너희 뒤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함으로써 파라다이스 달성의 긴 학교를 통과하는 너희의 길을 간다.

5. 다양한 예비무리단. 우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있지 않은 광대한 존재의 예비자들이 예비 무리단 거류민단으로서 유버사에 동원되어 있다.

now numbers over one million. These astronomers come and go, though some remain for comparatively long periods. They carry on their work with the aid of a multitude of mechanical instruments and physical appliances; they are also greatly assisted by the Solitary Messengers and other spirit explorers. These celestial astronomers make constant use of the living energy transformers and transmitters, as well as of the reflective personalities, in their work of star study and space survey. They study all forms and phases of space material and energy manifestations, and they are just as much interested in force function as in stellar phenomena; nothing in all space escapes their scrutiny.

30:3.5 (339.2) Similar astronomer colonies are to be found on the sector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 as well as on the architectural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i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Except on Paradise, knowledge is not inherent;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universe is largely dependent on observation and research.

30:3.6 (339.3) 2. *The Celestial Artisans* serve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Ascending mortals have their initial contact with these groups in the morontia career of the local univer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se artisans will be more fully discussed.

30:3.7 (339.4) 3. *The Reversion Directors* are the promoters of relaxation and humor — reversion to past memories. They are of great service i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ascending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especially during the earlier phases of morontia transition and spirit experience. Their story belongs to the narrative of the mortal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30:3.8 (339.5) 4. *Extension-School Instructors*. The next higher residential world of the ascendant career always maintains a strong corps of teachers on the world just below, a sort of preparatory school for the progressing residents of that sphere; this is a phase of the ascendant scheme for advancing the pilgrims of time. These schools, their methods of instruction and examinations, are wholly unlike anything which you essay to conduct on Urantia.

30:3.9 (339.6) The entire ascendant plan of mortal progression is characterized by the practice of giving out to other beings new truth and experience just as soon as acquired. You work your way through the long school of Paradise attainment by serving as teachers to those pupils just behind you in the scale of progression.

30:3.10 (339.7) 5. *The Various Reserve Corps*. Vast reserves of beings not under our immediate supervision are mobilized on Uversa as the

유버사에는 이 거류민단이 70개의 1차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비범한 개인성들과 어느 기간을 함께 보내도록 허용되는 것은 하나의 자유 교육이다. 비슷한 일반 예비자들이 구원자별 그리고 다른 우주 수도들 위에 유지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집단의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활동적 봉사에 파견된다.

6. 학생 방문자. 우주 전체로부터 천상의 방문자들의 계속적인 흐름이 다양한 본부 세계들을 통해 부어진다. 개별존재로서 그리고 계층들로서, 다양한 이 유형의 존재들은 관찰자들과 교환 학생들 그리고 학생 조력자들로 우리들에게 떼를 지어 온다. 현재 유버사에는, 이 우대거류민단 안에 10억 명 이상의 개인들이 있다. 이 방문자들 중 일부는 하루를 머물 수 있고, 나머지는 1년을 머물 수 있는데, 모두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 다르다. 이 거류민단은 창조자 개인성들과 모론시아 필사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의 우주 존재들을 포함한다.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지역 우주의 경계선 안에서만 학생 방문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이 영 지위를 얻은 이후에만 초우주 수용력 안에서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방문자 거류민단 중 꼭 절반이 “단기 체류자들”,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오르본톤 수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멈춘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인성들은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기간의 휴식—임무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우주 내부를 여행하고 관찰하는 특권은 상승하는 전체 존재들의 생애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세계들과 사람들을 보고 여행하기를 원하는 인간은 지역, 초-, 그리고 중앙우주를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향하는 길고도 다사한 상승 기간 동안 충만하게 만족을 누릴 것이다.

7. 상승하는 순례자.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그들의 파라다이스 진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봉사에 배정될 때, 그들은 다양한 본부 구체들에서 우대거류민단으로서 산다. 초우주의 이곳저곳에서 기능하는 동안, 그러한 집단들은 주로 자아-관리한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진화적 필사자들과 그들의 상승하는 연관-동료들을 포함하는 영원히-이동하는 거류민단이다.

제 4 장. 상승하는 필사자

파라다이스를 향한 진보적 상승의 자격을 얻을 때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생존자들이 상승하는 순례자들로 명명되는 반면, 이 진화적 창조체들은 상승하는 우주 생애 중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들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글들 안에 들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를 차지 한다:

1. 행성 필사자.

reserve-corps colony. There are seventy primary divisions of this colony on Uversa, and it is a liberal education to be permitted to spend a season with these extraordinary personalities. Similar general reserves are maintained on Salvington and other universe capitals; they are dispatched on active service on the requisition of their respective group directors.

30:3.11 (339.8) 6. *The Student Visitors.* From all the universe a constant stream of celestial visitors pours through the various headquarters worlds. As individuals and as classes these various types of beings flock in upon us as observers, exchange pupils, and student helpers. On Uversa, at present, there are over one billion persons in this courtesy colony. Some of these visitors may tarry a day, others may remain a year, all dependent on the nature of their mission. This colony contains almost every class of universe beings except Creator personalities and morontia mortals.

30:3.12 (340.1) Morontia mortals are student visitors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origin. They may visit in a superuniverse capacity only after they have attained spirit status. Fully one half of our visitor colony consists of “stopovers,” beings en route elsewhere who pause to visit the Orvonton capital. These personalities may be executing a universe assignment, or they may be enjoying a period of leisure — freedom from assignment. The privilege of intrauniverse travel and observation is a part of the career of all ascending beings. The human desire to travel and observe new peoples and worlds will be fully gratified during the long and eventful climb to Paradise through the local, super-, and central universes.

30:3.13 (340.2) 7. *The Ascending Pilgrims.* As the ascending pilgrims are assigned to various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ir Paradise progression, they are domiciled as a courtesy colony on the various headquarters spheres. While functioning here and there throughout a superuniverse, such groups are largely self-governing. They are an ever-shifting colony embracing all orders of evolutionary mortals and their ascending associates.

4. THE ASCENDING MORTALS

30:4.1 (340.3) While the mortal survivors of time and space are denominated *ascending pilgrims* when accredited for the progressive ascent to Paradise, these evolutionary creatures occupy such an important place in these narratives that we here desire to present a synopsis of the following seven stages of the ascending universe career:

30:4.2 (340.4) 1. Planetary Mortals.

2. 잠자는 생존자.

3. 맨션세계 학생.

4. 모론시아 진보자.

5. 초우주 피보호자.

6. 하보나 순례자.

7. 파라다이스 도착자.

다음의 이야기는 조절자-내주 필사자의 우주 생애를 보여준다. 아들-융합 그리고 영-융합 필사자들은 이 생애들의 여러 부분들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속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운명이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 전체에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1. 행성 필사자. 필사자들은 모두 상승 잠재를 가진 동물-기원 진화적 존재들이다. 기원과 본성 그리고 운명에 있어서, 다양한 이 집단들 그리고 유형들의 인간 존재들은 유란시아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는 않다. 각 세계의 인간 종족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동일한 사명활동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의 현존을 향유한다. 자연적인 죽음 이후에, 모든 유형의 상승자들은 맨션세계들에서 하나의 모론시아 가족으로서 형제우애관계를 가진다.

2. 잠자는 생존자.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의 보호관찰 안에 있는, 생존 지위의 모든 필사자들은, 자연적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맨션세계에서 세번째 기간으로 개인성구현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능 숙달과 영성의 자질 차원이 개인 수호자들을 가질 차원에 달성할 수 없다고 인가된 필사자들은 즉시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맨션세계들로 갈 수는 없다. 생존되는 그러한 혼들은 새로운 신(新)시대, 영역을 판결하고 그 시대의 출석점호를 부르기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오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심판 날까지 무의식적 수면 속에서 쉬어야만 하며, 이것은 네바돈 전체에 두루 일반적 실천 관행이다. 미가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서의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높은 곳으로 상승하였을 때, 그에 관하여 “그는 큰 무리의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였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아담의 시대 이후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부활 때까지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이었다.

시간의 경과를 잠자는 필사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으며; 그들은 온통 무의식 속에 있고 그들의 휴식기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한 시대가 끝나면서 개인성이 재조립될 때, 5,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들은 5일을 쓴 자들과 전혀 차이 없이 다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지연을 제외하고, 이 생존자들은 비교적 길든지 또는 짧든지 죽음의 수면상태를 격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상승체제를 통과해 지나간다.

세상 순례자들의 이들 섭리시대적 학급은 지역우주의 일에서 모론시아 집단 활동을 위해 활용

30:4.3 (340.5) 2. Sleeping Survivors.

30:4.4 (340.6) 3. Mansion World Students.

30:4.5 (340.7) 4. Morontia Progressors.

30:4.6 (340.8) 5. Superuniverse Wards.

30:4.7 (340.9) 6. Havona Pilgrims.

30:4.8 (340.10) 7. Paradise Arrivals.

30:4.9 (340.11) The following narrative presents the universe career of an Adjuster-indwelt mortal. The Son- and Spirit-fused mortals share portions of this career, but we have elected to tell this story as it pertains to the Adjuster-fused mortals, for such a destiny may be anticipated by all of the human races of Urantia.

30:4.10 (340.12) 1. *Planetary Mortals.* Mortals are all animal-origin evolutionary beings of ascendant potential.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these various groups and types of human beings are not wholly unlike the Urantia peoples. The human races of each world receive the same ministry of the Sons of God and enjoy the presence of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fter natural death all types of ascenders fraternize as one morontia family on the mansion worlds.

30:4.11 (341.1) 2. *Sleeping Survivors.* All mortals of survival status, in the custody of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pass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and, on the third period, personalize on the mansion worlds. Those accredited beings who have, for any reason, been unable to attain that level of intelligence mastery and endowment of spirituality which would entitle them to personal guardians, cannot thus immediately and directly go to the mansion worlds. Such surviving souls must rest in unconscious sleep until the judgment day of a new epoch, a new dispensation, the coming of a Son of God to call the rolls of the age and adjudicate the realm, and this is the general practice throughout all Nebadon. It was said of Christ Michael that, when he ascended on high at the conclusion of his work on earth, “He led a great multitude of captives.” And these captives were the sleeping survivors from the days of Adam to the day of the Master’s resurrection on Urantia.

30:4.12 (341.2) The passing of time is of no moment to sleeping mortals; they are wholly unconscious and oblivious to the length of their rest. On reassembly of personality at the end of an age, those who have slept five thousand years will react no differently than those who have rested five days. Aside from this time delay these survivors pass on through the ascension regime identically with those who avoid the longer or shorter sleep of death.

30:4.13 (341.3) These dispensational classes of world pilgrims are utilized for group morontia activities in

된다. 그러한 거대한 집단을 동원하는 데는 큰 이점이 있다; 오랜 기간의 효과적인 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함께 둔다.

3. 맨션세계 학생. 맨션세계들에서 다시 깨어나는 생존되는 모든 필사자들이 이 계통에 속한다.

필사 육신의 물리적 몸체는 잠자는 생존자의 재조립의 일부분이 아니며; 물리적 몸체는 먼지로 돌아간다. 임무배정의 세라핌천사들이 새로운 몸체, 모론시아 형태를 후원하는데, 그것은 불멸 혼을 위한 그리고 돌아온 조절자의 내주를 위한 새로운 생명 매체이다. 그 조절자는 잠자는 생존자의 마음의 영(靈) 성적표에 대한 보호관리자다. 배정된 세라핌천사는 생존되는 정체성—불멸 혼—을 그것이 진화를 마칠 때까지 보존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두 존재들, 조절자와 세라핌천사는 그들의 개인성 위탁물들을 재(再)연합시킬 때, 그 새로운 개별존재는 옛 개인성의 부활, 그 혼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정체성이 생존되는 것이다. 혼과 조절자의 그러한 재결합은 부활, 개인성 요소들의 재조립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만; 이것도 생존되는 개인성의 재출현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행위의 사실들을 아마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필사자 생존의 계획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언젠가 그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진보적 훈련의 일곱 세계들 위에 필사자를 처음으로 붙잡아두는 그 계획은 오르본톤 안에서 거의 보편적인 일이다. 거주민이 사는 약 1,000개 행성들로 구성된 각 지역체계마다 일곱 맨션세계들이 있는데, 대개 그 체계 수도의 위성들 또는 하위-위성들이다. 그것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계들이다.

때로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훈련 세계들이 우주 “저택들”이라고 불리며, 그것은 예수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하였을 때 암시한 그러한 세계들에 대한 것이다. 이 이후로 계속, 맨션세계들과 같은 주어진 집단의 구체들 안에서, 상승자들은 한 구체로부터 다음 구체로 한 삶 위상으로부터 다음 위상으로 개별적으로 진보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항상 학급을 형성하여 한 우주 연구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4. 모론시아 진보자. 맨션세계들로부터 위를 향하여 체계와 별자리와 우주의 구체들을 통과하기까지,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로 분류된다; 그들은 필사자 상승의 변환 구체들을 지나간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세계들 중 비교적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진보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선생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그들보다 더 진보되거나 그들의 선배인 형제들과 함께 수를 셀 수 없는 배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the work of the local universes. There is a great advantage in the mobilization of such enormous groups; they are thus kept together for long periods of effective service.

30:4.14 (341.4) 3. *Mansion World Students.* All surviving mortals who reawaken on the mansion worlds belong to this class.

30:4.15 (341.5) The physical body of mortal flesh is not a part of the reassembly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physical body has returned to dust. The seraphim of assignment sponsors the new body, the morontia form, as the new life vehicle for the immortal soul and for the indwelling of the returned Adjuster. The Adjuster is the custodian of the spirit transcript of the mind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assigned seraphim is the keeper of the surviving identity — the immortal soul — as far as it has evolved. And when these two, the Adjuster and the seraphim, reunite their personality trusts, the new individual constitutes the resurrection of the old personality, the survival of the evolving morontia identity of the soul. Such a reassociation of soul and Adjuster is quite properly called a resurrection, a reassembly of personality factors; but even this does not entirely explain the reappearance of the surviving *personality*. Though you will probably never understand the fact of such an inexplicable transaction, you will sometime experientially know the truth of it if you do not reject the plan of mortal survival.

30:4.16 (341.6) The plan of initial mortal detention on seven worlds of progressive training is nearly universal in Orvonton. In each local system of approximately one thousand inhabited planets there are seven mansion worlds, usually satellites or subsatellites of the system capital. They are the receiving worlds for the majority of ascending mortals.

30:4.17 (341.7) Sometimes all training worlds of mortal residence are called universe “mansions,” and it was to such spheres that Jesus alluded when he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From here on, within a given group of spheres like the mansion worlds, ascenders will progress individually from one sphere to another and from one phase of life to another, but they will always advance from one stage of universe study to another in class formation.

30:4.18 (342.1) 4. *Morontia Progressors.* From the mansion worlds on up through the spheres of the system,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mortals are classed as morontia progressors; they are traversing the transition spheres of mortal ascension. As the ascending mortals progress from the lower to the higher of the morontia worlds, they serve on countless assignments in association with their teachers and in company with their more advanced and senior brethren.

모론시아 진보는 지성과 영과 개인성 형태의 계속적인 향상에 속한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3가지-본성을-갖는 존재들이다. 모론시아 체험 전체에 두루 그들은 그 지역우주의 피보호자들이다. 초우주의 체계는 영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기능하지 않는다.

필사자들은 그들이 초우주의 소구역들에 속한 접수 세계들을 향하여 지역우주 본부를 떠나기 직전에 실제 영 정체성을 획득한다. 마지막 모론시아 단계로부터 첫 번째 또는 가장 낮은 영 지위로 지나가는 것은 미미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마음과 개인성과 성격은 그러한 진보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형태만 변화될 뿐이다. 그러나 영 형태는 모론시아 몸체와 똑같이 실제적이고, 똑같이 식별 가능하다.

그들이 태어난 지역우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초우주 세계들을 향해 떠나기 전에, 시간의 필사자들은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영 확인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그 필사자의 지위가 언제까지나 정착된다. 초우주 피보호자들은 타락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상승하는 세라핌천사들 역시 지역우주들로부터 떠날 때 천사 신분에서 승진한다.

5. 초우주 피보호자. 초우주들의 훈련하는 세계들에 도착하는 모든 상승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피보호자들이 된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삶을 다 지나갔고 이제는 공인된 영들이다. 어린 영들로서 그들은 훈련과 문화의 초우주 체계의 상승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소구역들에 속한 받아들이는 구체들로부터, 10개의 대구역들에 속한 연구 세계들을 거쳐, 초우주 본부의 비교적 높은 문화적 구체들까지 이른다.

그들이 영 진보의 소구역과 대구역 그리고 초우주 본부에 머무는 것에 따라 세 가지 계층의 학생 영들이 존재한다. 모론시아 상승자들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 연구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영 상승자들은 그들이 지혜의 체험적 원천들에서 흡수해 왔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실천 관행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들을 계속 숙지해 간다. 그러나 초우주 생애에 있어서 영 존재로서 학교에 가는 일은 사람의 물질적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 전에 들어갔던 어떤 경우와도 전혀 틀리다.

하보나를 향하여 그 초우주를 떠나기 전에, 이 상승하는 영들은 그들이 지역우주 감독안에서의 그들의 모론시아 체험 기간 동안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초우주 운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게 전에, 그들의 주요 연구는, 독점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우주와 초우주 관리-행정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 전체에 대한 이유가 지금은 충분히 두

30:4.19 (342.2) Morontia progression pertains to continuing advancement of intellect, spirit, and personality form. Survivors are still three-natured beings. Throughout the entire morontia experience they are wards of the local universe. The regime of the superuniverse does not function until the spirit career begins.

30:4.20 (342.3) Mortals acquire real spirit identity just before they leave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receiving worlds of the min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Passing from the final morontia stage to the first or lowest spirit status is but a slight transition. The mind, personality, and character are unchanged by such an advance; only does the form undergo modification. But the spirit form is just as real as the morontia body, and it is equally discernible.

30:4.21 (342.4) Before departing from their native local universes for the superuniverse receiving worlds, the mortals of time are recipients of spirit confirmation from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rom this point on, the status of the ascending mortal is forever settled. Superuniverse wards have never been known to go astray. Ascending seraphim are also advanced in angelic standing at the time of their departure from the local universes.

30:4.22 (342.5) 5. *Superuniverse Wards.* All ascenders arriving on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become the ward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have traversed the morontia life of the local universe and are now accredited spirits. As young spirits they begin the ascension of the superuniverse system of training and culture, extending from the receiving spheres of their minor sector in through the study worlds of the ten major sectors and on to the higher cultural spheres of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30:4.23 (342.6) There are three orders of student spirits in accordance with their sojourn upon the minor sector, major sectors, and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worlds of spirit progression. As morontia ascenders studied and worked on the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so spirit ascenders continue to master new worlds while they practice at giving out to others that which they have imbibed at the experiential fountains of wisdom. But going to school as a spirit being in the superuniverse career is very unlike anything that has ever entered the imaginative realms of the material mind of man.

30:4.24 (342.7) Before leaving the superuniverse for Havona, these ascending spirits receive the same thorough course in superuniverse management that they received during their morontia experience in local universe supervision. Before spirit mortals reach Havona, their chief study, but not exclusive occupation, is the mastery of local and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 reason for all of

렛하지 않지만, 그러한 훈련이 최종의 무리단의 일원들로서 가능한 그들의 미래 운명을 고려함에 있어서 현명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초우주 체제는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에게 똑같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일반 교육을 받지만, 특별한 집단들과 학급들이 특별 안내 과정에 두루 그리고 특별한 훈련 과정에 두루 운영된다.

6. 하보나 순례자. 영 발전이 완성되면, 심지어 충만하지 않더라도,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진화적 영들의 안식처를 향한 긴 비행을 위해 준비한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과 피의 창조체이었다; 지역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였으며; 초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진화하는 영이었다; 너희가 하보나의 접수 세계들에 도착하면 너희의 영적 교육이 실제 안에서 그리고 진지함 안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파라다이스에서의 결국 생겨나는 모습은 완전하게 된 영이 될 것이다.

초우주 본부로부터 하보나 접수 구체들을 향한 그 여행은 항상 홀로 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학급이나 집단 지도가 관리-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기술적 그리고 관리-행정적 훈련을 마쳤다. 이제 너희의 개인적 교육, 너희의 개별적 영적 훈련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보나에 두루, 훈련은 개인적이고 본질적으로 삼중적인데 즉: 지적, 영적, 그리고 체험적이다

너희의 하보나 생애의 첫 활동은 길고도 안전한 여행에 대하여 너희의 운송 2품천사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초기 하보나 활동들을 후원하게 될 그 존재들 앞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도착을 등록하고 너희의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 너희의 아들관계의 생애를 가능하게 만든 우주의 아버지에게 보낼 감사와 찬미의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것이 하보나 도착의 정규 절차들을 완결 지을 것이다; 그 후로 너희는 자유로운 관찰을 위한 긴 기간의 휴양을 허락 받으며, 이것은 긴 상승 체험에서의 너희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연관-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너희는 너희가 유버사를 떠난 이후로 너희 동반자 순례자들 중 누가 하보나를 향하여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을 참고할 수 있다.

하보나의 접수 세계들에 너희가 도착하였다는 그 사실이 너희 지역우주의 본부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고, 세라핌천사들이 가게 될 어느 곳 이든지 너희의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에게 직접 전해질 것이다.

상승한 필사자들은 공간의 진화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속속들이 훈련을 마쳤으며; 이제 그들은 창조된 완전의 구체들과 길고도 유익한 접촉을 시작한다. 어떤 미래 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

this experience is not now fully apparent, but no doubt such training is wise and necessary in view of their possible future destiny as member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30:4.25 (342.8) The superuniverse regime is not the same for all ascending mortals. They receive the same general education, but special groups and classes are carried through special courses of instruction and are put through specific courses of training.

30:4.26 (343.1) 6. *Havona Pilgrims*. When spirit development is complete, even though not replete, then the surviving mortal prepares for the long flight to Havona, the haven of evolutionary spirits. On earth you were a creature of flesh and blood; through the local universe you were a morontia being; through the superuniverse you were an evolving spirit; with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s of Havona your spiritual education begins in reality and in earnest; your eventual appearance on Paradise will be as a perfected spirit.

30:4.27 (343.2) The journey from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to the Havona receiving spheres is always made alone. From now on no more class or group instruction will be administered. You are through with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training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Now begins your *personal education*, your individual spiritual training. From first to last, throughout all Havona, the instruction is personal and threefold in nature: intellectual, spiritual, and experiential.

30:4.28 (343.3) The first act of your Havona career will be to recognize and thank your transport seconaphim for the long and safe journey. Then you are presented to those beings who will sponsor your early Havona activities. Next you go to register your arrival and prepare your message of thanksgiving and adoration for dispatch to the Creator Son of your local universe, the universe Father who made possible your sonship career. This concludes the formalities of the Havona arrival; whereupon you are accorded a long period of leisure for free observation, and this affords opportunity for looking up your friends, fellows, and associates of the long ascension experience. You may also consult the broadcasts to ascertain who of your fellow pilgrims have departed for Havona since the time of your leaving Uversa.

30:4.29 (343.4) The fact of your arrival on the receiving worlds of Havona will be duly transmitted to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universe and personally conveyed to your seraphic guardian, wherever that seraphim may chance to be.

30:4.30 (343.5) The ascendant mortals have been thoroughly trained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now they begin their long and profitable contact with the created spheres of

병합되고 독특하고 비범한 체험에 의해 얼마나 많이 잘 제공되는지! 그러나 나는 하보나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며; 너희는 그것들의 영광을 깊이 감상하려면 그리고 그것들의 웅장함을 납득하려면 너희가 이 세계들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7. 파라다이스 도착자.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 너희는 신성과 아(亞)절대성에 있어서의 진보적 과정을 시작한다. 파라다이스에 너희가 거주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을 이미 발견한 것을 의미하고, 너희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우주의 모든 창조체들 중에서, 아버지 결합을 이룬 자들만이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오직 그러한 개별존재들만이 최종자 서약을 한다. 파라다이스 완전 또는 달성에 속하는 다른 존재들은 일시적으로 이 최종 무리단에 배정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적이고 완전해진 고차존재들로 구성된 모이는 이 무리의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사명에 영구적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다.

파라다이스 도착자들에게는 어떤 기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 그들은 1차 초(超)천사들로 구성된 일곱 집단들과 관계적-연합을 이루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 지휘-안내자들과 그들의 과정을 완결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멀리-퍼지는 창조계의 끝까지 관찰하고 협동하는 봉사에 최종자로서 배정되었을 때 파라다이스 졸업생들로 명명된다. 그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된 세계들에서 여러 수용능력으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자의 필사자 무리단이 아직 특별하거나 정해진 일자리가 없는 듯하다..

만일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어떤 미래적 또는 계시되지 않은 운명이 존재할 수 없다면, 상승하는 이 존재들의 현재 임무는 충분하고도 영광스럽다. 그들의 현재 운명은 진화적 상승의 우주적 계획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외부공간에 속한 구체들의 진화의 미래 시대들이, 인간 구원과 필사자 상승에 대한 그들의 신성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느님들의 지혜와 자애로움을,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더 많은 충만성과 함께 신성하게 조명한다.

이 글은, 너희에게 계시되어 온 것과 함께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세계에 관한 설명과 관련하여 너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 관한 개요를 보여준다. 그 이야기는 다른 초우주들에서는 상당히 다르지만, 이 설명은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서 그리고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분,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바와 같이, 필사자 진보의 평균적인 계획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유버사로부터 온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perfection. What a preparation for some future work is afforded by this combined, unique, and extraordinary experience! But I cannot tell you about Havona; you must see these worlds to appreciate their glory or to understand their grandeur.

30:4.31 (343.6) 7. *Paradise Arrivals*. On reaching Paradise with residential status, you begin the progressive course in divinity and absonity. Your residence on Paradise signifies that you have found God, and that you are to b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Of all th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only those who are Father fuse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Only such individuals take the finaliter oath. Other beings of Paradise perfection or attainment may be temporarily attached to this finality corps, but they are not of eternal assignment to the unknown and unrevealed mission of this accumulating host of the evolutionary and perfected veterans of time and space.

30:4.32 (343.7) Paradise arrivals are accorded a period of freedom, after which they begin their associations with the seven groups of the primary supernaphim. They are designated Paradise graduates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course with the conductors of worship and then, as finaliters, are assigned on observational and co-operative service to the ends of the far-flung creation. As yet there seems to be no specific or settled employment for the Mortal Corps of Finaliters, though they serve in many capacities on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30:4.33 (344.1) If there should be no future or unrevealed destiny for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the present assignment of these ascendant beings would be altogether adequate and glorious. Their present destiny wholly justifies the universal plan of evolutionary ascent. But the future ages of the evolution of the spheres of outer space will undoubtedly further elaborate, and with more repleteness divinely illuminate, the wisdom and loving-kindness of the Gods in the execution of their divine plan of human survival and mortal ascension.

30:4.34 (344.2) This narrative, together with what has been revealed to you and with what you may acquire in connection with instruction respecting your own world, presents an outline of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The story varies considerably in the different superuniverses, but this recital affords a glimpse of the average plan of mortal progression as it is operative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in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30:4.35 (344.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from Uversa.]

제 31 편 최종의 무리단

⇨ 030

유랜시아 책

032 ⇨

부 II. 지역우주

제 31 편 최종의 무리단

섹션

소개

- 제 1 장. 하보나 원주민
- 제 2 장. 중력 메신저
- 제 3 장. 영화롭게 된 필사자
- 제 4 장. 입양된 세라핌천사
- 제 5 장.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 제 6 장.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
- 제 7 장. 빛의 전도자
- 제 8 장. 초월자
- 제 9 장. 주 (主) 우주고안건축가
- 제 10 장. 궁극적 모험여행

PAPER 31

THE CORPS OF THE FINALITY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Havona Natives
- 2. Gravity Messengers
- 3. Glorified Mortals
- 4. Adopted Seraphim
- 5. Glorified Material Sons
-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 7. The Evangels of Light
- 8. The Transcendentals
- 9.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 10. The Ultimate Adventure

소개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시간의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 무리단에 배정된 다른 집단들도 있다. 1차 최종자 무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하보나 원주민.
- 2. 중력 메신저.
-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 4. 입양된 세라핌천사.
- 5.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 6.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

영화롭게 된 이 여섯 집단의 존재들은 영원한 운명의 이 독특한 본체를 구성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미래 활동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파라다이스에서 동원되고 있는 반면, 그리고 지금은 그들

INTRODUCTION

31:0.1 (345.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represents the present known destination of the ascending Adjuster-fused mortals of time. But there are other groups who are also assigned to this corps. The primary finaliter corp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 31:0.2 (345.2) 1. Havona Natives.
- 31:0.3 (345.3) 2. Gravity Messengers.
- 31:0.4 (345.4) 3. Glorified Mortals.
- 31:0.5 (345.5) 4. Adopted Seraphim.
- 31:0.6 (345.6) 5. Glorified Material Sons.
- 31:0.7 (345.7)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31:0.8 (345.8) These six groups of glorified beings compose this unique body of eternal destiny. We think we know their future work, but we are not certain. While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is mobilizing on Paradise, and while they now so extensively minister to the universes of space and

이 공간의 우주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돌보고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미래 운명은 반드시 외부 공간에 속한 현재-조직되고 있는 우주들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유버사에 대한 추측이다.

그 무리단은 공간의 세계들의 활동하는 관계적-연합들에 따라서 그리고 길고도 다사한 상승생애에 두루 획득된 연관하는 체험과 조화하여 조직된다. 이 무리단에 받아들여진 상승한 창조체들 전체가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고양된 이 평등성은 어떤 면으로든 개별존재성을 폐기시키거나 또는 개인적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자와 교통하면서 그가 상승자 필사자인지, 하보나 원주민인지, 입양된 세라핌천사인지, 중도 창조체인지, 또는 물질아들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최종자는 시간의 우주들에서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다. 그들은 다른 초우주들 안에서 연속적으로 수고하도록 배정되고, 다른 여섯 초(超)창조들 전부에서 봉사를 마친 이후까지는 자신이 태어난 초우주들 안에 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최극존재의 칠중 개념을 취득한다.

필사자 최종자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반자들이 유란시아 안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다. 그들이 배정되지 않는 우주 봉사의 권역이 없으며; 그들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교대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배정된 근무와 자유로운 봉사를 하면서 기능한다.

우리는 비범한 이 집단의 미래 조직의 본성에 대해 그 어떤 개념도 갖고 있지 않지만, 최종자는 지금 전적으로 자아-관리 무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구적, 주기적, 그리고 임무배정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선택한다. 어떤 외부 영향도 그들의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충성의 맹세는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해서일 뿐이다.

그 최종자는 파라다이스에, 초우주들 안에, 지역우주들 안에, 그리고 분할된 모든 수도(首都)들 위에 그들의 자신의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진화적 창조에 속한 별도의 계층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항상 협조한다. 그들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시험을 받고 참된 누적되는 혼들—우주의 진화적 소금—이며 그들은 언제까지나 악에 물들 수 없고 죄에 빠질 염려가 없다.

제 1 장. 하보나 원주민

중앙우주의 순례자-훈련 학교들에서 선생들로서 봉사하는 하보나 원주민들 대부분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크게 배정되게 되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의 미래적 활동과 운명에 더 많이 관여

administer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ir future destination must be the now-organizing universes of outer space. At least that is the conjecture of Uversa.

31:0.9 (345.9) The corps is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associations of the worlds of space and in keeping with the associative experience acquired throughout the long and eventful ascendant career. All the ascendant creatures admitted to this corps are received in equality, but this exalted equality in no way abrogates individuality or destroys personal identity. We can immediately discern, in communicating with a finaliter, whether he is an ascendant mortal, Havona native, adopted seraphim, midway creature, or Material Son.

31:0.10 (345.10)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finaliters return to serve in the universes of time. They are assigned to labor successively in the different superuniverses and never in their native superuniverses until after they have served in all the other six supercreations. Thus may they acquire the sevenfold concept of the Supreme Being.

31:0.11 (345.11) One or more companies of the mortal finaliters are constantly in service on Urantia. There is no domain of universe service to which they are not assigned; they function universally and with alternating and equal periods of assigned duty and free service.

31:0.12 (345.12) We have no idea as to the nature of the future organization of this extraordinary group, but the finaliters are now wholly a self-governing body. They choose their own permanent, periodic, and assignment leaders and directors. No outside influence can ever be brought to bear upon their policies, and their oath of allegiance is only to the Paradise Trinity.

31:0.13 (346.1) The finaliters maintain their own headquarters on Paradise, in the superuniverses, in the local universes, and on all the divisional capitals. They are a separate order of evolutionary creation. We do not directly manage them or control them, and yet they are absolutely loyal and always co-operative with all our plans. They are indeed the accumulating tried and true souls of time and space — the evolutionary salt of the universe — and they are forever proof against evil and secure against sin.

1. THE HAVONA NATIVES

31:1.1 (346.2) Many of the Havona natives who serve as teachers in the pilgrim-training schools of the central universe become greatly attached to the ascending mortals and still more intrigued with the

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그랜환다의 연관-동료에 의해 지배되는 하보나 지원자들에 대한 등록부가 그 무리단의 행정-관리적 본부에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이 대기 명단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하보나 원주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이고도 신성한 창조에 속한 이 완전한 존재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큰 도움을 주며, 그들은 매우-먼 미래에 분명히 더 큰 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성과 신성한 충만성 속에서 탄생된 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최종자는 체험적 실존의 두 위상 모두를—완전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포용한다.

하보나 원주민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의 단편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창조하게 될 진화적 존재들과 연락하여 특성의 체험적 발전을 반드시 성취한다.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은 최초 근원이며 중심의 영과 이미 결합된 또는, 중력 메신저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느님의 이 영을 태생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존재들만을 영원한 회원으로 삼는다.

중앙우주의 거주자들은 1,000명—최종자 중대(中隊)—당 1명의 비율로 이 무리단 안에 받아들여진다. 그 무리단은 1,000명, 한 명의 하보나 원주민과 한 명의 중력 메신저마다 997명의 상승하는 창조체의 중대들을 이루어 일시적 봉사를 위해 조직된다. 최종자는 그렇게 중대들로 동원되지만, 최종 서약은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된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서약이다. 그 하보나 원주민은 동일한 서약을 하고, 그 무리단에 언제까지나 배속된다.

하보나 신입생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중대를 따라가며; 그 집단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들도 간다. 그리고 너희는 최종자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보아야만 한다.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하는 가능성은 하보나에서의 장엄한 기쁨들 중 하나이다; 최종자가 되는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들의 최극 모험여행들 중 하나이다.

하보나 원주민들 역시 대관별에 있는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에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초월 최종자 무리단에 동일한 비율로 받아들여진다. 하보나 시민들은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으로의 그들의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세 가지 운명들이 그들의 천상의 생애들의 최극 목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중력 메신저

중력 메신저들이 기능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최종자가 지휘한다. 모든 중력 메신저들은 그랜환다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에 있고, 그들은 오직 1차 최종의 무리단에만 배정된다. 그

future work and destiny of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On Paradise there is maintained, at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corps, a registry for Havona volunteers presided over by the associate of Grandfanda. Today, you will find millions upon millions of Havona natives upon this waiting list. These perfect beings of direct and divine creation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Mortal Corps of Finality, and they will undoubtedly be of even greater service in the far-distant future. They provide the viewpoint of one born in perfection and divine repleteness. The finaliters thus embrace both phases of experiential existence — perfect and perfected.

31:1.2 (346.3) Havona natives must achieve certain experiential developments in liaison with evolutionary beings which will create reception capacity for the bestowal of a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Mortal Finaliter Corps has as permanent members only such beings as have been fused with the spiri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r who, like the Gravity Messengers, innately embody this spirit of God the Father.

31:1.3 (346.4) The inhabitants of the central universe are received into the corps in the ratio of one in a thousand — a finaliter company. The corps is organized for temporary service in companies of one thousand, the ascendant creatures numbering 997 to one Havona native and one Gravity Messenger. Finaliters are thus mobilized in companies, but the finality oath is administered individually. It is an oath of sweeping implications and eternal import. The Havona native takes the same oath and becomes forever attached to the corps.

31:1.4 (346.5) The Havona recruits follow the company of their assignment; wherever the group goes, they go. And you should see their enthusiasm in the new work of the finaliters. The possibility of attaining the Corps of the Finality is one of the superb thrills of Havona;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finaliter is one of the supreme adventures of these perfect races.

31:1.5 (346.6) The Havona natives are also received, in the same ratio, into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on Vicegerington and into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on Paradise. The Havona citizens regard these three destinies as constituting the supreme goals of their supernal careers, together with their possible admission to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2. GRAVITY MESSENGERS

31:2.1 (346.7) Wherever and whenever Gravity Messengers are functioning, the finaliters are in command. All Gravity Messengers ar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Grandfanda, and they are

들은 지금도 최종자에게 이루 해야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은 영원한 미래에 모든 것에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능 창조체들 중 어떤 다른 집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성구현된 메신저 무리단을 소유할 수 없다. 다른 최종자 무리단에 배정된 비슷한 유형의 메신저-기록자들은 개인성구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亞)절대화되어 있다.

중력 메신저들은 신성별로부터 흩어져 나오며, 그들은 변형되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지만, 우리 유버사 집단 중 어느 하나도 이 메신저들 중 하나의 본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높은 개인적 존재들이며, 신성하고 지능적이고 감동적으로 납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공간을 횡단하는 그들의 시간을 초월하는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일부 또는 전체의 에너지들과 순환회로들과 심지어는 중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사자 무리에 속한 최종자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영 개인성들을 그들의 명령 아래에 종속시켜 왔고 그들과 연관해 왔다. 우리는 중력 메신저들을 개인성들이라고 부르고자 하지만, 실체 안에서 그들은 초(超)영 존재들, 무제한적이고 경계선이 없는 개인성들이다. 그들은 단독 메신저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의 개인성에 속한다.

중력 메신저들은 무제한적 숫자로 최종자 중대에 배정될 수 있지만, 그의 동료들 중 우두머리인 한 명의 메신저만이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아무튼 이 우두머리는 999명의 동료 메신저들로 구성된 영구적인 참모진을 그에게 배정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에, 그는 무제한적 숫자로 그 계층의 예비자들에 보좌관들을 요청해도 좋다.

중력 메신저들과 영화롭게 된 필사자 최종자는 서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을 가지며;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많은데: 하나는 우주 아버지의 단편의 직접적인 개인성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우주 아버지의 단편, 영 생각 조절자와 융합된 생존되는 불멸 혼 안에 실존하는 창조체 개인성이다.

제 3 장. 영화롭게 된 필사자

상승자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이 1차 최종의 무리단의 대부분을 이룬다. 입양된 그리고 영화롭게 된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대개 각 최종자 중대마다 990명으로 구성한다. 필사자들이 세라핌천사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집단 안에서의 필사자들 그리고 천사들의 비율은 다르다. 하보나 원주민들,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들,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들, 중력 메신저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누락된 대원은 그 무리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000명의 최종자로 구성된 각 중대는 필사자들이 아니고 세라핌천사들도 아닌 이 개인성들 중 10명에게만 자리를 제공한다.

assigned only to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hey are invaluable to the finaliters even now, and they will be all-serviceable in the eternal future. No other group of intelligent creatures possesses such a personalized messenger corps able to transcend time and space. Similar types of messenger-recorders attached to other finaliter corps are not personalized; they are absonitized.

31:2.2 (347.1) Gravity Messengers hail from Divinington, and they are modified and personalized Adjusters, but no one of our Uversa group will undertake to explain the nature of one of these messengers. We know they are highly personal beings, divine, intelligent, and touchingly understanding, but we do not comprehend their timeless technique of traversing space. They seem to be competent to utilize any and all energies, circuits, and even gravity. Finaliters of the mortal corps cannot defy time and space, but they have associated with them and subject to their command all but infinite spirit personalities who can. We presume to call Gravity Messengers personalities, but in reality they are superspirit beings, unlimited and boundless personalities. They are of an entirely different order of personality as compared with Solitary Messengers.

31:2.3 (347.2) Gravity Messengers may be attached to a finaliter company in unlimited numbers, but only one messenger, the chief of his fellows, is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This chief however has assigned to him a permanent staff of 999 fellow messengers, and as occasion may require, he may call upon the reserves of the order for assistants in unlimited numbers.

31:2.4 (347.3) Gravity Messengers and glorified mortal finaliters achieve a touching and profound affection for one another; they have much in common: One is a direct personalization of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other a creature personality existent in the surviving immortal soul fused with a fragment of the same Universal Father, the spirit Thought Adjuster.

3. GLORIFIED MORTALS

31:3.1 (347.4) Ascendant Adjuster-fused mortals compose the bulk of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ogether with the adopted and glorified seraphim they usually constitute 990 in each finaliter company. The proportion of mortals and angels in any one group varies, though the mortals far outnumber the seraphim. The Havona natives, glorified Material Sons, glorified midway creatures, the Gravity Messengers, and the unknown and missing member make up only one per cent of the corps; each company of one thousand finaliters has places for just ten of these nonmortal and

유버사에 속한 우리는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최종 운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현재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고 있고 빛과 생명의 무리단 안에서 봉사하지만, 그러한 상승하는 훈련의 거대한 과정과 그러한 긴 우주 단련은 더 큰 신뢰의 시험과 더 숭고한 책임감의 봉사를 위해 그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고안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이미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되고, 지역우주들의 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초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있어서—심지어는 이 명백한 운명 앞에서—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숫자로 되돌려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여섯 번째 단계 영들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의의(意義)깊은 사실이 남아 있다.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생애 안에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단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해 인식해 왔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1. 우리는 필사자들이 소구역들 안에 머무는 동안 첫 번째 계층에 속한 영들임을, 그리고 그들이 대구역들에게로 전환될 때 두 번째 계층으로 나가고 그 초우주의 중앙 훈련 세계들에게로 갈 때 세 번째 계층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록으로부터 알고 있다. 필사자들은 하보나의 여섯 번째 순환계에 도달한 이후에 제4의 영들 또는 졸업생 영들이 되며 그들이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때 다섯 번째 계층의 영들이 된다. 그 후에 그들은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영원 임무배정에 그들을 언제까지나 소집하는 서약을 한다.

우리는 한 영역이 우주 봉사로부터 다른 영역의 우주 봉사로 또는 한 우주로부터 다른 우주로 나아가는 실제적 진보에 의해 영 분류 또는 명칭이 결정된다는 것을 목격 한다; 우리는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일곱 번째 영 분류의 증거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구체들에서의 봉사를 위한 영원한 임무배정으로 그들이 승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달성함과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추측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너희보다 실제로 더 알지 못 한다; 필사자 생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 파라다이스 운명을 넘지 않는다.

2. 필사자 최종자는 그 시대들의 명령, “너희가 완전 하라”는 것에 완전히 순응해 왔으며; 그들은 필사자 달성의 우주 경로를 상승해 왔으며; 그들은 하느님을 발견하였고, 최종의 무리단에 정식으로 모집되었다. 그러한 존재들은 궁극적 영 지위의 최종이 아니라 영 진보의 현재 한계를 달성하였다. 그들은 창조체 봉사의 최종이 아니라 창조체 완전의 현재 한계를 성취하였다. 그들은 체험적 신(神) 달성의 최종이 아니라 신(神) 경배의

nonseraphic personalities.

31:3.2 (347.5) We of Uversa do not know the “finality destiny” of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At present they reside on Paradise and temporarily serve in the Corps of Light and Life, but such a tremendous course of ascendant training and such lengthy universe discipline must be designed to qualify them for even greater tests of trust and more sublime services of responsibility.

31:3.3 (347.6) Notwithstanding that these ascendant mortals have attained Paradise, have be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have been sent back in large numbers to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local universes and to assist in the administration of superuniverse affairs — in the face of even this *apparent* destiny, there remains the significant fact that they are of record as only sixth-stage spirits. There undoubtedly remains one more step in the career of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We do not know the nature of that step, but we have taken cognizance of, and here call attention to, three facts:

31:3.4 (348.1) 1. We know from the records that mortals are spirits of the first order during their sojourn in the minor sectors, and that they advance to the second order when translated to the major sectors, and to the third when they go forward to the central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Mortals become quartan or graduate spirits after reaching the sixth circle of Havona and become spirits of the fifth order when they find the Universal Father. They subsequently attain the sixth stage of spirit existence upon taking the oath that musters them forever into the eternity assignment of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31:3.5 (348.2) We observe that spirit classification, or designation, has been determined by actual advancement from one realm of universe service to another realm of universe service or from one universe to another universe; and we surmise that the bestowal of seventh-spirit classification upon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will be simultaneous with their advancement to eternal assignment for service on hitherto unrecorded and unrevealed spheres and concomitant with their attainment of God the Supreme. But aside from these bold conjectures, we really know no more about all this than you do; our knowledge of the mortal career does not go beyond present Paradise destiny.

31:3.6 (348.3) 2. The mortal finalizers have fully complied with the injunction of the ages, “Be you perfect”; they have ascended the universal path of mortal attainment; they have found God, and they have been duly induct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Such beings have attained the present limit of spirit progression but not *finality of ultimate spirit status*. They have achieved the present limit of creature perfection but not *finality of creature*

충만함을 체험하였다.

3.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에 속한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지능적 실존 중 가장 충분한 가능성의 삶에 해당하는 실재성과 철학의 각 단계의 체험적 지식을 소유하여 상승하는 존재들인 반면, 가장 낮은 물질적 세계들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영적 고지(高地)들을 향하여 상승하는 그 시대들 동안, 생존되는 이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적 창조 전체에 대한 공정하고도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도 인내심이 많은 관리-행정의 모든 신성한 원칙의 모든 내용에 관한 그들의 수용력의 한계에 대해 훈련을 받아 왔다.

우리는 인간 존재들이 우리의 견해를 공유할 자격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궁극적 운명의 신비에 관하여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된 진화적 창조체들의 현재 임무배정이 우주 남독과 초우주 관리-행정에서의 졸업-이후 과정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듯이 보인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들이 왜 생존하고 있는 필사자들을 우주 운영 기법에서 것처럼 철저히 훈련하는 데에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제 4 장. 입양된 세라핌천사

필사자들의 신실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인간 피보호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를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으며, 이 수호천사들 대부분은, 아버지 결합을 이룬 후에, 영원의 최종자 서약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피지배자들과 동참하고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받아들이는 것이다. 필사 존재들의 상승하는 체험을 통과하는 천사들은 인간 본성의 운명을 공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최종의 무리단에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소집될 수도 있다. 많은 숫자의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세라핌천사들이 다양한 비(非)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 배정된다.

제 5 장. 영화롭게 된 물질아들

지역체계들에 속한 아담의-시민들이, 행성에서의 임무배정을 받는 일이 오래 지체될 때, 영구적-시민권 지위로부터 풀려나도록 탄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규정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 있다. 그리고 만일 허락이 되면, 그들은 우주 수도들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합류하며 그 때부터 최종의 무리단과 파라다이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시대에 도달하였을 때, 그 물질아들들, 행성 아담들과 이브들은 인간화되기로 선택하고

service. They have experienced the fullness of Deity worship but not *finality of experiential Deity attainment*.

31:3.7 (348.4) 3. The glorified mortals of the Paradise Corps of Finality are ascendant beings in possession of experiential knowledge of every step of the actuality and philosophy of the fullest possible life of intelligent existence, while during the ages of this ascent from the lowest material worlds to the spiritual heights of Paradise, these surviving creatures have been trained to the limits of their capacity respecting every detail of every divine principle of the just and efficient, as well as merciful and patient, administration of all the universal creation of time and space.

31:3.8 (348.5) We deem that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share our opinions, and that you are free to conjecture with us respecting the mystery of the ultimate destiny of the Paradise Corps of Finality. It seems evident to us that the present assignments of the perfected evolutionary creatures partake of the nature of postgraduate courses in universe understanding and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and we all ask, “Why should the Gods be so concerned in so thoroughly training surviving mortals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management?”

4. ADOPTED SERAPHIM

31:4.1 (348.6) Many of the faithful seraphic guardians of mortals are permitted to go through the ascendant career with their human wards, and many of these guardian angels, after becoming Father fused, join their subjects in taking the finaliter oath of eternity and forever accept the destiny of their mortal associates. Angels who pass through the ascending experience of mortal beings may share the destiny of human nature; they may equally and eternally be mustered into this Corps of the Finality. Large numbers of the adopted and glorified seraphim are attached to the various nonmortal finaliter corps.

5. GLORIFIED MATERIAL SONS

31:5.1 (349.1) There is provision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hereby the Adamic citizens of the local systems, when long delayed in receiving planetary assignment, may initiate a petition for release from permanent-citizenship status. And if granted, they join the ascending pilgrims on the universe capitals and thence proceed onward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31:5.2 (349.2) When an advanced evolutionary world attains the later eras of the age of light and life, the Material Sons, the Planetary Adam and Eve, may

조절자들을 받아들이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으로 인도되는 우주 상승의 진화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질아들들 중 일부는,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촉진제로서의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기술적으로 불이행을 범해 왔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역의 사람들의 자연적인 과정을 밟게 되는데, 조절자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통과하고, 신앙으로 상승 체제를 통과하여 진보하며, 그 후에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을 달성한다.

이 물질아들들은 많은 최종자 중대들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현존은 그러한 집단을 위한 높은 봉사의 가능성에 거대한 잠재를 부여하며, 그들은 늘 그것의 영도자로 택함을 받는다. 만일 에덴의 부부 모두가 같은 집단에 배정되면, 그들은 대개 한 개인성으로서 함께 기능하도록 허용된다. 그러한 상승한 쌍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삼위일체화 모험 여행을 한다.

제 6 장. 영화롭게 된 중도 창조체

많은 행성들의 경우 중도 창조체들이 많은 숫자로 산출되지만, 그들은 그들이 탄생된 그 세계가 빛과 생명 안에 정착된 후에는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되면, 또는 그 후로 곧, 그들이 영구적인-시민권의 지위로부터 해방되고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과 함께 모론시아 세계들과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간다.

다양한 우주들로부터 온 중도 창조체들은 기원과 본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 중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2차 중도자들은 모두 결국에는 조절자와 결합하고 필사자 무리단으로 모집된다. 많은 최종자 중대들은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 중 한 명을 그들의 집단 안에 갖고 있다.

제 7 장. 빛의 전도자

현재 각 최종자 중대에는 서약 지위를 가진, 영구적인 대원인 999명의 개인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어 있는 자리는 어떤 단일 임무에 선임된 배정된 빛의 전도자들의 우두머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그 무리단들 중 유일한 파괴적 성원들이다.

최종자 무리단의 봉사에 배정된 어떤 천상의 개인성이든지 빛의 전도자라고 명명된다. 이들 존재는 최종자 서약을 하지 않으며 그 무리단 조직에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배정되지 않는 다. 이 집단은 단독 메신저들, 초(超)천사들, 2품 천사들, 파라다이스 시민들, 초(超)천사들, 삼위일체화된 자손들—과도기 최종자 임무배정의 실행에 필요한 어느 존재—을 포용할 수 있다. 우리는

elect to humanize, receive Adjusters, and embark upon the evolutionary course of universe ascent leading 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Certain of these Material Sons have partially failed or technically defaulted in their mission as biologic accelerators, as Adam did on Urantia; and then are they compelled to take the natural course of the peoples of the realm, receive Adjusters, pass through death, and progress by faith through the ascendant regime, subsequently attaining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31:5.3 (349.3) These Material Sons are not to be found in many finaliter companies. Their presence lends great potential to the possibilities of high service for such a group, and they are invariably chosen as its leaders. If both of the Edenic pair are attached to the same group, they are usually permitted to function jointly, as one personality. Such ascendant pairs are far more successful in the adventure of trinitizing than are the ascendant mortals.

6. GLORIFIED MIDWAY CREATURES

31:6.1 (349.4) On many planets the midway creatures are produced in large numbers, but they seldom tarry on their native world subsequent to its being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n, or soon there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ermanent-citizenship status and start on the ascension to Paradise, passing through the morontia worlds, the superuniverse, and Havona in company with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31:6.2 (349.5) The midway creatures from various universes differ greatly in origin and nature, but they are all destined to one or another of the Paradise finality corps. The secondary midwayers are all eventually Adjuster fused and are mustered into the mortal corps. Many finaliter companies have one of these glorified beings in their group.

7. THE EVANGELS OF LIGHT

31:7.1 (349.6) At the present time every finaliter company numbers 999 personalities of oath status, permanent members. The vacant place is occupied by the chief of attached Evangel of Light assigned on any single mission. But these beings are only transient members of the corps.

31:7.2 (349.7) Any celestial personality assigned to the service of any finaliter corps is denominated an Evangel of Light. These beings do not take the finaliter oath, and though subject to the corps organization they are not of permanent attachment. This group may embrace Solitary Messengers, supernaphim, seconaphim, Paradise Citizens, or their trinitized offspring —

무리단이 이들 존재들을 영원한 임무에 배정해 왔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들 빛의 전도자들은 배속됨에서의 결론에 이르면, 그들의 이전(以前) 지위를 재개한다.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섯 등급의 영구적인 단원들이 있다. 그 최종자는, 기대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 동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하지만, 그들 중에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버사에 속한 우리는 일곱 번째 집단의 최종자의 정체성에 관하여 종종 추측한다. 우리는 여러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파라다이스와 대관별 그리고 내부 하보나 순환회로에 있는 수많은 삼위일체화 집단들에 해당하는 모여드는 무리단들 중 일부의 가능성 있는 임무배정이 포함된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들의 봉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운명되어진 사건 안에서 우주 관리-행정의 업무에 있어서 그들의 보좌관들 중 대부분을 최종의 무리단이 삼위일체화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까지 추측된다.

우리들 중 하나는, 그들이 미래에 봉사할 새 우주 안에서 기원되는 어떤 유형의 존재에 의해 그 무리단 안에 있는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이 자리가 아직 창조되거나 결국 생겨나거나 삼위일체화 되지 않은 어떤 유형의 파라다이스 개인성에 의해 차지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알기 전에 영 달성에 대한 그들의 일곱 번째 단계에 최종자가 들어가기 를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제 8 장. 초월자

최종자로서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하게 된 필사자의 체험의 일부는, 1,000개 이상의 집단에 해당하는 파라다이스의 초월적 초(超)시민들, 아(亞)절대적 속성들을 가진 결국 생겨난 존재들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속에 있다. 이 초(超)개인성들과의 그들의 관계적-연합에 있어서, 상승한 그 최종자는 그들의 새로운 파라다이스 형제들에게 진보된 최종자를 소개하는 임무에 배정된 초월적 사망활동자들의 수많은 계층들에 대한 유익한 안내로부터 큰 협조를 받아들인다. 초월자들의 전체 계층은 그들이 배타적으로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서쪽에서 산다.

초월자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 이해의 한계들 때문만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개인성들에 관한 이 계시를 지배하는 명령의 단어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 존재들은 하보나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어느 면에서도 관련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초월자들의 거대한 무리는 하보나 또는 일곱 초우주 중 어느 것의 관련사들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데, 주(主)우주 의 관련

any being required in the prosecution of a transient finaliter assignment. Whether or not the corps is to have these beings attached to the eternal mission, we do not know. At the conclusion of attachment these Evangelers of Light resume their former status.

31:7.3 (350.1) As the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is at present constituted, there are just six classes of permanent members. The finaliters, as might be expected, engage in much speculation as to the identity of their future comrades, but there is little agreement among them.

31:7.4 (350.2) We of Uversa often conjecture respecting the identity of the seventh group of finaliters. We entertain many ideas, embracing possible assignment of some of the accumulating corps of the numerous trinitized groups on Paradise, Vicegerington, and the inner Havona circuit. It is even conjectured that the Corps of the Finality may be permitted to trinitize many of their assistants in the work of universe administration in the event they are destined to the service of universes now in the making.

31:7.5 (350.3) One of us holds the opinion that this vacant place in the corps will be filled by some type of being of origin in the new universe of their future service; the other inclines to the belief that this place will be occupied by some type of Paradise personality not yet created, eventuated, or trinitized. But we will most likely await the entrance of the finaliters upon their seventh stage of spirit attainment before we really know.

8. THE TRANSCENDENTALS

31:8.1 (350.4) Part of the perfected mortal's experience on Paradise as a finaliter consists in the effort to achieve comprehension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more than one thousand groups of the transcendental supercitizens of Paradise, eventuated beings of absonite attributes. In their association with these superpersonalities, the ascendant finaliters receive great assistance from the helpful guidance of numerous orders of transcendental ministers who are assigned to the task of introducing the evolved finaliters to their new Paradise brethren. The entire order of the Transcendentals live in the west of Paradise in a vast area which they exclusively occupy.

31:8.2 (350.5) In the discussion of Transcendentals we are restricted, not only by the limitations of human comprehension, but also by the terms of the mandate governing these disclosures concerning the personalities of Paradise. These beings are in no way connected with the mortal ascent to Havona. The vast host of the Paradise Transcendental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사들에 대한 초(超)관리-행정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창조체인 너희가 창조자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창조자들도 아니고 창조체들도 아닌 지능 존재들의 거대하고도 다양한 집단들이 있음을 너희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된 적도 없다. 그들의 기원에 대해 말할 때, 새로운 단어—독단적이고 의미 없는 명칭—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초월자들이 단순히 결국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신(神) 절대자가 그들의 기원에 관여하였을 수도 있고 그들의 운명에 관계될 수도 있지만, 이들 독특한 존재들은 현재 신(神) 절대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그들은 궁극자 하느님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현재 파라다이스 체류는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있다.

비록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모든 필사자들이 그들이 파라다이스 시민들과 형제우애를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월자들과도 자주 사귀기는 하지만, 필사자가 초월자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촉하는 것은, 초월자들의 우두머리, 곧 주관하는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영원의 삼위일체 서약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최종자 집단의 회원으로, 필사자 상승자들이 최종자로 받아들여지는 순환계 안에 서 있는, 바로 그 사건 많은 계기에서이다.

제 9 장. 주 (主) 우주고안건축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은 파라다이스 초월자들 중 지배하는 무리단이다. 지배하는 이 무리단은 주(主)마음들, 장엄한 영들, 그리고 천상의 아(亞)절대자들을 포함하는 28,011명의 개인성들로 구성된다. 훌륭한 이 집단을 지배하는 관리, 상급(上級) 주(主)고안건축가는, 신(神)의 차원 아래에 있는 모든 파라다이스 지능체들의 조화-협동 우두머리이다.

이 글들을 허락하는 명령의 열 여섯 번째 항목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실존은 계시될 수 있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운명은 충분히 계시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주(主)고안건축가들이 아(亞)절대의 일곱 차원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다. 이 일곱 집단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파라다이스 차원. 오직 상급(上級) 또는 첫 번째-결국 생겨난 고안건축가만이 아(亞)절대의 가장 높은 이 차원에서 기능한다. 이 궁극적 개인성—창조자도 아니고 창조체도 아닌—은 영원의 여명기에 결국 생겨났으며 지금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그것의 21개 연관 활동 세계들의 절묘한 조

with the affairs of either Havona or the seven superuniverses, being concerned only with the super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master universe.

31:8.3 (350.6) You, being a creature, can conceive of a Creator, but you can hardly comprehend that there exists an enormous and diversified aggregation of intelligent beings who are neither Creators nor creatures. These Transcendentals create no beings, neither were they ever created. In speaking of their origin, in order to avoid using a new term — an arbitrary and meaningless designation — we deem it best to say that Transcendentals simply *eventuate*. The Deity Absolute may well have been concerned in their origin and may be implicated in their destiny, but these unique beings are not now dominated by the Deity Absolute. They are subject to God the Ultimate, and their present Paradise sojourn is in every way Trinity supervised and directed.

31:8.4 (351.1) Although all mortals who attain Paradise frequently fraternize with the Transcendentals as they do with the Paradise Citizens, it develops that man's first serious contact with a Transcendental occurs on that eventful occasion when, as a member of a new finaliter group, the mortal ascender stands in the finaliter receiving circle as the Trinity oath of eternity is administered by the chief of Transcendentals, the presiding head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9.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31:9.1 (351.2)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re the governing corps of the Paradise Transcendentals. This governing corps numbers 28,011 personalities possessing master minds, superb spirits, and supernal absonites. The presiding officer of this magnificent group, the senior Master Architect, is the co-ordinating head of all Paradise intelligences below the level of Deity.

31:9.2 (351.3) The sixteenth proscription of the mandate authorizing these narratives says: “If deemed wise, the existen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their associates may be disclosed, but their origin, nature, and destiny may not be fully revealed.” We may, however, inform you that these Master Architects exist in seven levels of the absonite. These seven groups are classified as follows:

31:9.3 (351.4) 1. *The Paradise Level.* Only the senior or first-eventuated Architect functions on this highest level of the absonite. This ultimate personality — neither Creator nor creature — eventuated in the dawn of eternity and now functions as the exquisite co-ordinator of Paradise

화-협동자로서 기능한다.

2. 하보나 차원. 두 번째 고안건축가의 결국 생김은 세 명의 주(主) 계획자들과 아(亞)절대 행정-관리자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중앙우주에 속하는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들의 조화-협동에 항상 헌신해 왔다. 파라다이스 전통은 이 세 고안건축가들이, 이전에-결국 생겨난 선배 고안건축가의 조언에 따라, 하보나의 계획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3. 초우주 차원. 세 번째 아(亞)절대 차원은 일곱 초우주들의 일곱 주(主)고안건축가들을 포옹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의 집단으로서, 파라다이스에 있는 일곱 주(主) 영들과 함께 그리고 무한한 영의 특별한 일곱 세계들에 있는 일곱 최극 집행자들과 함께 거의 동일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대우주의 초(超)조화-협동자들이다.

4. 1차 공간 차원. 이 집단은 70명의 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되며, 우리는 그들이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서 결집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첫 우주를 위한 궁극적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5. 2차 공간 차원. 이 다섯 번째 고안건축가 무리단은 49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또 그들이, 분명한 에너지 결집을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미 감지한 외부 공간의 두 번째 우주와 틀림없이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6. 3차 공간 차원. 주(主)고안건축가들 중 여섯 번째 집단은 3,430명으로 구성되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외부 공간의 세 번째 우주를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7. 4차적 공간 차원. 최종적이고 가장 큰 무리단인 이것은 24,010명의 주(主)고안건축가들로 구성되며, 만일 앞서 했던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외부 공간의 계속-크기가-증가하는 4번째 그리고 최종 우주들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주(主)고안건축가들의 이들 일곱 집단들은 총 28,011명의 우주 계획자들이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영원의 먼 과거에 28,012번째 주(主)고안건축가의 결국 생겨짐이 시도되었다는, 그러나 이 존재가 아(亞)절대구현 되는 일에 실패하고 우주 절대자에 의해 개인성 압류를 체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주(主)고안건축가들의 상승하는 계열이 28,011번째 고안건축가 안에서 아(亞)절대성의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 그리고 28,012번째 시도가 그 절대자의 현존의 수학적 차원에 이르고자 하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28,012번째 결국 생겨짐의 차원에서, 아(亞)절대성의 그 본질특성이 우주자의 차원과 동등하게 되었고 절대자의 가치에 도달하였다.

그들의 기능적 조직 안에서 하보나의 감독하

and its twenty-one worlds of associated activities.

31:9.4 (351.5) 2. *The Havona Level.* The second Architect eventuation yielded three master planners and absonite administrators, and they have always been devoted to the co-ordination of the one billion perfect spheres of the central universe. Paradise tradition asserts that these three Architects, with the counsel of the pre-eventuated senior Architect, contributed to the planning of Havona, but we really do not know.

31:9.5 (351.6) 3. *The Superuniverse Level.* The third absonite level embraces the seven Master Architec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who now, as a group, spend about equal time in the compan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n Paradise and with the Seven Supreme Executives on the seven special world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the superco-ordinators of the grand universe.

31:9.6 (351.7) 4. *The Primary Space Level.* This group numbers seventy Architects, and we conjecture that they are concerned with the ultimate plans for the first universe of outer space, now mobilizing beyond the borders of the present seven superuniverses.

31:9.7 (351.8) 5. *The Secondary Space Level.* This fifth corps of Architects numbers 490, and again we conjecture that they must be concerned with the second universe of outer space, where already our physicists have detected definite energy mobilizations.

31:9.8 (352.1) 6. *The Tertiary Space Level.* This sixth group of Master Architects numbers 3,430, and we likewise infer that they may be occupied with the gigantic plans for the third universe of outer space.

31:9.9 (352.2) 7. *The Quartan Space Level.* This, the final and largest corps, consists of 24,010 Master Architects, and if our former conjectures are valid, it must be related to the fourth and last of the ever-increasing-sized universes of outer space.

31:9.10 (352.3) These seven groups of Master Architects total 28,011 universe planners. On Paradise there is a tradition that far back in eternity there was attempted the eventuation of the 28,012th Master Architect, but that this being failed to absonitize, experiencing personality seizure by the Universal Absolute. It is possible that the ascending series of the Master Architects attained the limit of absonity in the 28,011th Architect, and that the 28,012th attempt encountered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presence of the Absolute. In other words, at the 28,012th eventuation level the quality of absonity equaled to the level of the Universal and attained the value of the Absolute.

31:9.11 (352.4) In their functional organization the

는 그 세 고안건축가들은 단독 파라다이스 고안건축가에게 연관-동료 보좌관들로서 활동한다. 초우주들의 일곱 고안건축가들은 하보나의 세 감독자들의 조화-협동자들로서 활동한다. 1차 외부 공간 차원에 속한 우주들의 70인 계획자들은 현재 일곱 초우주들의 일곱 고안건축가들에게 연관-동료 보좌관들로서 봉사하고 있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은, 두 개의 광대한 계층의, 기세 조직자, 1차적으로 결국 생겨난 그리고 고 연관-동료 초월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집단의 보좌관들과 조력자들을 그들 임의대로 쓸 수 있다. 이 주(主)기세조직자들은 대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힘 지도자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삼위일체화된 자손들과 같은, 시간과 영원의 자녀들의 연합에 의해 생산된 모든 존재들은, 주(主)고안건축가들의 피보호자들이 된다. 그러나 현재 조직된 우주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시된 다른 모든 창조체들 또는 실존개체들 중에서, 오직 단독 메신저들 그리고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만이 주(主)우주 의 초월자들 그리고 고안건축가들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적-연합을 유지한다.

주(主)고안건축가들은 지역우주들의 조직을 위한 그들의 공간 지역들에 대한 창조자 아들들의 임무배정의 기술적 승인에 기여한다. 주(主)고안건축가들과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 사이에는 어떤 매우 긴밀한 연관이 존재하며, 이 관계가 계시되지 않은 반면, 너희에게는 최초 체험적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의 고안건축가들 그리고 대우주 최극 창조자들의 연관이 알려져 왔다. 이 두 집단들은, 진화하고 체험적인 최극존재와 함께, 초월적 가치와 주 우주 의미들의 삼위일체 궁극자를 구성한다.

three supervising Architects of Havona act as associate assistants to the solitary Paradise Architect. The seven Architects of the superuniverses act as co-ordinates of the three supervisors of Havona. The seventy planners of the universes of the primary outer space level are at present serving as associate assistants to the seven Architect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31:9.12 (352.5)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have at their disposal numerous groups of assistants and helpers, including two vast orders of force organizers, the primary eventuated and the associate transcendental. These Master Force Organizer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he power directors, who are germane to the grand universe.

31:9.13 (352.6) All beings produced by the union of the children of time and eternity, such as the trinitized offspring of the finaliters and the Paradise Citizens, become wards of the Master Architects. But of all other creatures or entities revealed as functioning in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s, only Solitary Messengers and Inspired Trinity Spirits maintain any organic association with the Transcendentals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31:9.14 (352.7) The Master Architects contribute technical approval of the assignment of the Creator Sons to their space site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There is a very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Master Architects and the Paradise Creator Sons, and while this relationship is unrevealed,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association of the Architects and the grand universe Supreme Creators in the relationship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These two groups, together with the evolving and experiential Supreme Being, constitute the Trinity Ultimate of transcendental values and master universe meanings.

제 10 장. 궁극적 모험여행

선배 주(主)고안건축가는 일곱 개의 최종의 무리단을 감독하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
2. 파라다이스 최종자 무리단.
3.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4. 공동 삼위일체화 최종자 무리단.
5. 하보나 최종자 무리단.
6. 초월적 최종자 무리단.

10. THE ULTIMATE ADVENTURE

31:10.1 (352.8) The senior Master Architect has the oversight of the seven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y are:

31:10.2 (352.9) 1. The Corps of Mortal Finaliters.

31:10.3 (352.10) 2. The Corps of Paradise Finaliters.

31:10.4 (352.11) 3. The Corps of Trinitized Finaliters.

31:10.5 (353.1) 4. The Corps of Conjoint Trinitized Finaliters.

31:10.6 (353.2) 5. The Corps of Havona Finaliters.

31:10.7 (353.3) 6. The Corps of Transcendental Finaliters.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의 무리단.

이들 운명의 무리단 각각에는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일곱 명이 파라다이스에서 운명의 최극 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그랜드판다가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을 위한 우주 임무 배정의 이 최극 기관의 우두머리다.

이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최극존재의 미래 주 우주 기능들까지도 초월하게 될지 모르는 잠재들, 개인성들, 마음들, 영들, 아(亞)절대성들, 그리고 체험적 실재성들의 실체 동원을 의미한다. 이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은, 외부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발전들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유한하고 아(亞)절대적인 존재들의 기세들을 소집하는 일에 궁극적 삼위일체의 현재 활동이 참여하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그 당시 존재하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개인성들을 비슷하게 동원시켰을 때 그리고 그들을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관리행정자들 그리고 통치자들로서 임명하였을 때 영원에 가까운 그 시간 이후로 이 동원과 비슷한 어떤 것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 일곱 최종자 무리단들은 미래의-영원한 활동의 외부 우주들 안에 있는 미개발된 잠재들의 미래 필요에 대한 대우주의 신성 응답을 나타낸다.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미래의 더 거대한 외부 우주들, 절묘하고 독특한 존재들의 새로운 계층들로 채워진 새로운 구체들, 그 궁극위에 있어서 숭고한 물질적 우주, 오직 하나의 중요한 내용만이 결핍된 거대한 창조—상승하는 실존의 우주적 삶에 있어서 실재적 유한 체험의 현존—에 대해 과감히 예측하고자 한다. 그러한 우주는 거대한 체험적 결손 즉: 전능 최극자의 진화에 참여함의 상실 아래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외부 우주들은 모두 최극존재의 비길 데 없는 보살핌과 숭고한 전반적-통제를 겪게 되겠지만, 그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바로 그 사실은 최극 신(神)의 실재화구현에 그들이 참여함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대우주의 진화하는 개인성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주권의 미완성 실재화구현에서 기인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체험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의 진화의 독특한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진화하고 그는 우리 안에서 진화한다. 영원한 미래의 언젠가 최극 신(神)의 진화가 우주역사의 완성된 사실이 될 것이며, 이 놀라운 체험에 참여하는 기회는 조화우주 활동의 무대로부터 지나가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우주의 유년기 동안 이 독특한 체험을 획득하는 자들은 미래의 전체 영원에 두루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

31:10.8 (353.4) 7. The Corps of Unrevealed Sons of Destiny.

31:10.9 (353.5) Each of these destiny corps has a presiding head, and the seven constitute the Supreme Council of Destiny on Paradise; and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Grandfanda is the chief of this supreme body of universe assignment for the children of ultimate destiny.

31:10.10 (353.6)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se seven finaliter corps signifies reality mobilization of potentials, personalities, minds, spirits, absonites, and experiential actualities that probably transcend even the future master universe functions of the Supreme Being. These seven finaliter corps probably signify the present activity of the Ultimate Trinity engaged in mustering the forces of the finite and the absonite in preparation for inconceivable developments in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Nothing like this mobilization has taken place since the near times of eternity when the Paradise Trinity similarly mobilized the then existing personalities of Paradise and Havona and commissioned them as administrators and rulers of the projected seven super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seven finaliter corps represent the divinity response of the grand universe to the future needs of the undeveloped potentials in the outer universes of future-eternal activities.

31:10.11 (353.7) We venture the forecast of future and greater outer universes of inhabited worlds, new spheres peopled with new orders of exquisite and unique beings, a material universe sublime in its ultimacy, a vast creation lacking in only one important detail — the presence of actual *finite experience* in the universal life of ascendant existence. Such a universe will come into being under a tremendous experiential handicap: the depriv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Supreme. These outer universes will all enjoy the matchless ministry and supernal overcontrol of the Supreme Being, but the very fact of his active presence precludes their participation in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Deity.

31:10.12 (353.8)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evolving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suffer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incomplete actu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but we are all sharing the unique experience of his evolution. We evolve in him and he evolves in us. Sometime in the eternal future the evolution of Supreme Deity will become a completed fact of universe history, an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wonderful experience will have passed from the stage of cosmic action.

31:10.13 (353.9) But those of us who have acquired this unique experience during the youth of the universe will treasure it throughout all future

고 우리들 중 대부분은, 최극존재의 시간-공간 진화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의 체험적 결핍을 보상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이 외부 우주들을 관리-운영하는 일이, 비슷하게 모집되는 여섯 개의 다른 무리단과 관계적-연합되는 최종의 무리단의 상승한 그리고 완전하게 된 필사자들의 점차적으로 누적하는 예비자들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결핍들은 우주 실존의 모든 차원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영적 실존들 중 비교적 높은 차원에 속한 우리는 지금 진화적 우주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내려왔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보살피며, 그리하여 비교적 높은 영적 체험에 속한 실체들 안에 있는 그들의 결핍을 보상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이 외부 창조계에 관한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들을 우리는 확신 한다:

1. 외부 공간의 권역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조직화하는 거대하고도 새로운 체계의 우주들이 실제로 있다. 새로운 계층의 물리적 창조계, 인간이 살고 조직화 된 창조계의 현재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먼 곳에서 무리를 짓고 있는 수많은 그리고 거대한 우주들이, 너희 망원경을 통하여 실제로 관찰된다. 현재, 이 외부 창조계에는 거주되지 않으며 창조체 관리-행정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여러 시대들 동안, 여섯 개의 다른 최종자 무리단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완전하게 되고 상승한 존재들의 설명되지 않고 전적으로 신비에 싸인 파라다이스 동원이 계속되고 있다.

3. 이들 활동행위와 동시에, 신(神)의 최극자 개인은 초(超)창조계의 전능한 주권자로서 힘을 키우고 있다.

창조체들과 우주들 그리고 신(神)을 포용하고 있는, 이 삼원적 발전을 우리가 조망하면서, 새롭고도 계시되지 않은 어떤 것이 주 우주 안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최극존재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척도와 개인성 창발 위에서의 물리적 우주들의 이 오랜 세월에 걸친 동원과 조직화를, 신성한 완전을 향하여 시간의 필사자들을 올려주는 이 엄청난 기획과, 그리고 그 후에 파라다이스에서 최종의 무리단 안에 동원되는 것—우주 신비 안에 덧입혀진 명칭과 운명—과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집결하는 최종의 무리단이 외부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어떤 미래적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유버사 전체가 점점 더 믿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적어도 70,000개의 물질 집합체에 해당하는 군(群)을 정체성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현재 초우주들

eternity. And many of us speculate that it may be the mission of the gradually accumulating reserves of the ascendant and perfected mortal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in association with the other six similarly recruiting corps, to administer these outer universes in an effort to compensate their experiential deficiencies in not having participated in the time-space evolution of the Supreme Being.

31:10.14 (353.10) These deficiencies are inevitable on all levels of universe existence.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we of the higher levels of spiritual existences now come down to administer the evolutionary universes and minister to the ascending mortals, thus endeavoring to atone for their deficiencies in the realities of the higher spiritual experience.

31:10.15 (354.1) But though we really know nothing about th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respecting these outer creations, nevertheless, of three things we are certain:

31:10.16 (354.2) 1. There actually is a vast and new system of universes gradually organizing in the domains of outer space. New orders of physical creations, enormous and gigantic circles of swarming universes upon universes far out beyond the present bounds of the peopled and organized creations, are actually visible through your telescopes. At present, these outer creations are wholly physical; they are apparently uninhabited and seem to be devoid of creature administration.

31:10.17 (354.3) 2. For ages upon ages there continues the unexplained and wholly mysterious Paradise mobilization of the perfected and ascendant beings of time and space, in association with the six other finaliter corps.

31:10.18 (354.4) 3. Concomitantly with these transactions the Supreme Person of Deity is powerizing as the almighty sovereign of the supercreations.

31:10.19 (354.5) As we view this triune development, embracing creatures, universes, and Deity, can we be criticized for anticipating that something new and unrevealed is approaching culmination in the master universe? Is it not natural that we should associate this agelong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physical universes on such a hitherto unknown scale and the personality emergence of the Supreme Being with this stupendous scheme of upstepping the mortals of time to divine perfection and with their subsequent mobilization on Paradise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 a designation and destiny enshrouded in universe mystery? It is increasingly the belief of all Uversa that the assembling Corps of the Finality are destined to some future service in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where we already are

중 어느 하나보다도 크다.

진화적 필사자들은 공간의 행성들에서 태어나고, 모론시아 세계들을 지나가고, 영 우주들을 상승하고, 하보나 구체들을 지나가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고, 1차 최종의 무리단 안으로 소집되며, 거기에서 우주 봉사의 다음 임무배정을 기다린다. 여섯 개의 다른 집결하는 최종 무리단이 있지만, 최초의 필사자 상승자인 그랜판다가 최종자의 모든 계층의 파라다이스 우두머리로서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모두 이렇게 외친다: 동물-기원의 시간의 자녀들, 공간의 물질 아들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이란 말인가!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한을 받은 이름-번호 없는 자와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공동으로 후원되었음]

신(神)의 본성, 파라다이스의 실체, 중앙우주와 초우주의 조직 그리고 활동, 대우주의 개인성들, 그리고 진화적 필사자들의 높은 운명을 묘사하는 이 31개 글들은, 서기 1934년에, 네바돈의 놀라시아택에 있는, 사타니아의 606번, 유란시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발령된 어떤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24명의 오르본톤 행정-관리자들로 구성된 높은 위원회에 의해 후원되고 공식화되고 영어로 기록되었다.

able to identify the clustering of at least seventy thousand aggregations of matter, each of which is greater than any one of the present superuniverses.

31:10.20 (354.6) Evolutionary mortals are born on the planets of space, pass through the morontia worlds, ascend the spirit universes, traverse the Havona spheres, find God, attain Paradise, and are mustered into the primary Corps of the Finality, therein to await the next assignment of universe service. There are six other assembling finality corps, but Grandfanda, the first mortal ascender, presides as Paradise chief of all orders of finaliters. And as we view this sublime spectacle, we all exclaim: What a glorious destiny for the animal-origin children of time, the material sons of space!

31:10.21 (354.7) [Jointly sponsored by a Divine Counselor and One without Name and Number authorized so to function by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31:10.22 (354.8) These thirty-one papers depicting the nature of Deity, the reality of Paradise,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the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 high destiny of evolutionary mortals, were sponsored, formulated, and put into English by a high commission consisting of twenty-four Orvonton administrators acting in accordance with a mandate issu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directing that we should do this on Urantia, 606 of Satania, in Norlatiadek of Nebadon, in the year A.D. 1934.

유랜시아 책

부 II. 지역우주

제 32 편 지역우주들의 진화

⇨ 031

유란시아 책

033 ⇨

부 II. 지역우주

제 32 편 지역우주들의 진화

섹션

소개

제 1 장. 우주들의 물리적 창발

제 2 장. 우주 조직

제 3 장. 진화적 관념

제 4 장. 지역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제 5 장.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소개

지역우주는 파라다이스의 미가엘 계층의 창조자 아들의 작품이다. 그것은 100개의 별자리들을 포함하는데, 그 각각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있는 100개의 체계들을 갖는다. 각각의 체계는 결국에는 약 1,000개에 달하는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들은 모두 진화한다.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의 창조적 계획은 그러한 어떤 지역우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체들에 거주하는 가지각색 창조체들의 육체적, 지적, 영적 본성 그리고 능력의 점진적 발전과 점차적인 발달 경로를 따라 항상 진행된다.

유란시아는 네바돈의 하느님-사람, 나사렛의 예수이며 구원자별의 미가엘인 그 분이 지배하는 지역우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에 대한 미가엘의 모든 계획들은 그가 공간의 최극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해 충분한 승인을 받았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창조자 활동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이 창조들은 기원적으로 파라다이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

PAPER 32

THE EVOLUTION OF LOCAL UNIVERSES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Emergence of Universes

2. Universe Organization

3. The Evolutionary Idea

4. God's Relation to a Local Universe

5.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INTRODUCTION

32:0.1 (357.1) A LOCAL universe is the handiwork of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order of Michael. It comprises one hundred constellations, each embracing one hundr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Each system will eventually contain approximately one thousand inhabited spheres.

32:0.2 (357.2) Thes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all evolutionary. The creative plan of the Paradise Michaels always proceeds along the path of gradual evolu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natures and capacities of the manifold creatures who inhabit the varied orders of spheres comprising such a local universe.

32:0.3 (357.3) Urantia belongs to a local universe whose sovereign is the God-man of Nebadon, Jesus of Nazareth and Michael of Salvington. And all of Michael's plans for this local universe were fully approved by the Paradise Trinity before he ever embarked upon the supreme adventure of space.

32:0.4 (357.4) The Sons of God may choose the realms of their creator activities, but these material creations were originally projected and planned by the Paradis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에 의해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계획되었다.

제 1 장. 우주들의 물리적 창발

공간-기세의 우주-이전(以前) 조종과 원초적 에너지들은 파라다이스 주(主)기세조직자들의 일이지만; 초우주 권역에서는, 창발에너지가 지역 또는 직선 중력에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관계된 초우주의 힘 지도자들을 위하여 물러난다.

이 힘 지도자들은 지역우주 창조물의 물질-이전(以前) 단계와 기세-이후(以後) 단계에서 홀로 기능한다. 창발 하는 우주를 위한 물질적 기초—말 그대로의 태양들과 물리적 구체들—를 충분히 공급하는 공간-에너지들의 활성화를 힘 지도자들이 이룩하기 전까지는 창조자 아들이 우주 조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지역우주들은 때때로 가시적(可視的)-물질 내용물이 서로 다르고 물리적 규모들이 크게 다르다 하더라도 에너지 잠재에 있어서는 모두가 거의 같다. 지역우주의 힘 충전량과 잠재적-물질 자질은 창조자 아들의 활동들에 의해 그리고 그의 창조적 연관-동료들에 의해 소유되는 선천적인 물리적 통제에 자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의 조종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우주의 에너지 충전량은 그것이 속한 초우주의 기세 자질의 약 100,000분의 일에 해당한다. 너희의 지역우주인 네바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질화 질량이 약간 적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바돈은 오르본톤의 지역우주 창조들 중에 어떤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자질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네바돈 우주의 발전적 팽창에 대한 유일한 물리적 제한은 연관된 힘들과 우주의 연관적 기능구조의 개인성들의 중력 통제에 의해 사로잡힌 공간-에너지의 양적 충전량 속에 있다.

에너지-물질이 질량 물질화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 그곳에 출현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 딸을 대동한다. 창조자 아들의 도착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가 될 고안건축 구체에 대한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한 지역우주 창조가 진행되는 긴 세월 동안, 태양들이 안정을 찾고 행성들이 형성되어 자기 궤도를 돌게 되는데, 별자리 본부들과 체계 수도(首都)의 역할을 하는 고안건축 세계들에 대한 창조 작업이 그동안 계속된다.

1. PHYSICAL EMERGENCE OF UNIVERSES

32.1.1 (357.5) The preuniverse manipulations of space-force and the primordial energies are the work of the Paradise Master Force Organizers; but in the superuniverse domains, when emergent energy becomes responsive to local or linear gravity, they retire in favor of the power director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32.1.2 (357.6) These power directors function alone in the prematerial and postforce phases of a local universe creation. There is no opportunity for a Creator Son to begin universe organization until the power directors have effected the mobilization of the space-energies sufficiently to provide a material foundation — literal suns and material spheres — for the emerging universe.

32.1.3 (357.7) The local universes are all approximately of the same energy potential, though they differ greatly in physical dimensions and may vary in visible-matter content from time to time. The power charge and potential-matter endowment of a local universe are determined by the manipulations of the power directors and their predecessors as well as by the Creator Son's activities and by the endowment of the inherent physical control possessed by his creative associate.

32.1.4 (358.1) The energy charge of a local universe is approximately one one-hundred-thousandth of the force endowment of its superuniverse. In the case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the mass materialization is a trifle less. Physically speaking, Nebadon possesses all of the physical endowment of energy and matter that may be found in any of the Orvonton local creations. The only physical limitation upon the developmental expansion of the Nebadon universe consists in the quantitative charge of space-energy held captive by the gravity control of the associated powers and personalities of the combined universe mechanism.

32.1.5 (358.2) When energy-matter has attained a certain stage in mass materialization, a Paradise Creator Son appears upon the scene, accompanied by a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Simultaneously with the arrival of the Creator Son, work is begun upon the architectural sphere which is to become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projected local universe. For long ages such a local creation evolves, suns become stabilized, planets form and swing into their orbits, while the work of creating the architectural worlds which are to serve as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system capitals continues.

제 2 장. 우주 조직

창조자 아들들은 우주 조직화에 있어서 셋째 근원이며 중심 속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들과 힘 지도자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너희의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그렇게 전에 조직화된 공간의 에너지들로부터 네바돈 우주의 거주민이 사는 영역들을 건설하였고 그 후로 계속 그것들의 관리-행정에 정성을 들여 헌신해 오고 있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선제하는 에너지로부터 가시적 물질을 형태화하고, 살아있는 창조체들을 구체적으로 투사하고, 무한한 영의 우주적 현존의 협조로 다양한 영 개인성 수행원들을 창조한다.

우주 조직화의 예비적인 물리적 작업에서 창조자 아들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였던 이 힘 지도자들과 에너지 통제자들은 나중에 이 우주 아들과의 장엄한 연락 속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이 기원적으로 조직하고 순회시켰던 그 에너지들의 통제와 연관된 일에 언제까지나 종사한다. 구원자별에는 이 지역우주의 기원적으로 형태화에서 너희의 창조자 아들과 협력하였던 동일한 100명의 기체 중심들이 현재 기능하고 있다.

네바돈에서 최초로 완성된 물리적 창조의 행위는 본부 세계의 조직에서, 그것의 위성들과 함께 구원자별의 고안건축 구체에서 이루어졌다.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최초 움직임이 있던 때로부터 구원자별의 완성된 구체에 살아있는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너희의 현재 행성 시간으로 10억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원자별이 건설된 후에 즉시로, 구체적으로 투사된 별자리들의 100개 본부 세계들과 행성 통제 그리고 관리-행정을 받는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 체계들의 10,000개 본부 구체들이 그것들의 고안건축 위성들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러한 고안건축 세계들은 육체적 개인성과 영적 개인성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모론시아 또는 변화 단계의 존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네바돈의 본부인 구원자별은 지역우주의 정확한 에너지-질량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너희의 지역우주는 비록 하나의 큰 체계가 그것의 물리적 중심에 존재하더라도 단 하나의 천문학적 체계는 아니다.

구원자별은 네바돈의 미가엘의 개인적인 본부이지만, 그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지역우주가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조자 아들이 중심 구체에 고정되어 현존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은 물리적 조직화의 초기 신(新)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양한 순환회로와 체계들이 상호 물리적 인력에 의해 서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물질화됨으로써 달성된 영역의 중력 안정성이 이루

2. UNIVERSE ORGANIZATION

32:2.1 (358.3) The Creator Sons are preceded in universe organization by the power directors and other beings originating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From the energies of space, thus previously organized, Michael, your Creator Son, established the inhabited realms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ever since has been painstakingly devoted to their administration. From pre-existent energy these divine Sons materialize visible matter, project living creatures, an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create a diverse retinue of spirit personalities.

32:2.2 (358.4) These power directors and energy controllers who long preceded the Creator Son in the preliminary physical work of universe organization later serve in magnificent liaison with this Universe Son, forever remaining in associated control of those energies which they originally organized and circuitized. On Salvington there now function the same one hundred power centers who co-operated with your Creator Son in the original formation of this local universe.

32:2.3 (358.5) The first completed act of physical creation in Nebadon consist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 the architectural sphere of Salvington, with its satellites. From the time of the initial moves of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to the arrival of the living staff on the completed spheres of Salvington, there intervened a little over one billion years of your present planetary time. The construction of Salvington was immediately followed by the creation of the one hundred headquarters worlds of the projected constellations and the ten thousand headquarters spheres of the projected local systems of planetary control and administration, together with their architectural satellites. Such architectural worlds are designed to accommodate both physical and spiritual personalities as well as the intervening morontia or transition stages of being.

32:2.4 (359.1)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is situated at the exact energy-mass center of the local universe. But your local universe is not a single astronomic system, though a large system does exist at its physical center.

32:2.5 (359.2) Salvington is the personal headquarters of Michael of Nebadon, but he will not always be found there. While the smooth functioning of your local universe no longer requires the fixed presence of the Creator Son at the capital sphere, this was not true of the earlier epochs of physical organization. A Creator Son is unable to leave his headquarters world until such a time as gravity stabilization of the realm has been

어지기 전에는 창조자 아들이 자신의 본부를 떠날 수 없다.

마침내, 한 우주에 대한 물리적 계획이 완성되었고, 창조자 아들은 창조 영과 관계적-연합하여 생명 창조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투사하였는데, 그 후에 무한한 영의 이 연출은 하나의 독특한 창조적 개인성으로서의 우주적 역할을 시작하였다. 최초의 이 창조적 행동이 공식화되고 시행되었을 때, 신성(神性)의 정체성과 이상에 대한 최초의 이 창조적 개념의 개인화구현인, 빛나는 새벽별이 나타나 존재하게 되었다. 이 존재는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인데,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 연관-동료이며, 신성의 속성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모든 성격적 측면에서는 그를 닮았다.

그리고 이제 창조자 아들의 믿을만한 조력자와 우두머리 집행자가 준비되었으므로, 다양한 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훌륭한 조직들이 계속 실존하게 되었다. 지역우주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출현하였고 그 후로 곧 그러한 창조를 다스리는 정부가 제공되었는데, 우주의 최고협의회들로부터 별자리들의 아버지들과 지역체계들—나중에 의지적 창조체들로 구성된 다양한 필사자 종족들의 고향이 되도록 고안된 그 세계들의 집합체—의 주권자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이 세계들 각각은 행성영주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우주가 그토록 완벽하게 조직화 되고 충분히 길들여졌을 때, 창조자 아들은 자기들의 형상대로 필사자 사람을 창조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었다.

행성 거주지들의 조직은 네바돈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냐하면 이 우주는 오르본톤의 별들과 행성 영역에서 하나의 어린 군(群)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네바돈에는 현재 3,840,101개의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너희가 사는 세계가 속한 지역체계인 사타니아는 다른 체계들과 매우 유사하다.

사타니아는 하나의 균일한 물리적 체계, 하나의 단일 우주 단위 또는 조직체가 아니다. 거주민이 사는 619개의 세계들이 5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리적 체계들 안에 위치해 있다. 오직 5개만이 두 개 보다 많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에 오직 한 개는 국민이 있는 네 개의 행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편 46개는 두 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

거주되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사타니아 체계는 일곱 번째 초우주의 물리적 또는 우주적 중심지로 기능하는 거대한 태양 군(群)과 유버사로부터 멀리 이동되어 있다. 사타니아의 본부인 예루셈으로부터 오르본톤 초우주의 물리적 중앙까지는 200,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은하수의 조

effected through the materialization of sufficient energy to enable the various circuits and systems to counterbalance one another by mutual material attraction.

32:2.6 (359.3) Presently, the physical plan of a universe is completed, and the Creator Son, in association with the Creative Spirit, projects his plan of life creation; whereupon does this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begin her universe function as a distinct creative personality. When this first creative act is formulated and executed, there springs into being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personification of this initial creative concept of identity and ideal of divinity. This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the personal associate of the Creator Son, one like him in all aspects of character, though markedly limited in the attributes of divinity.

32:2.7 (359.4) And now that the right-hand helper and chief executive of the Creator Son has been provided, there ensues the bringing into existence of a vast and wonderful array of diverse creatures.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local universe are forthcoming, and soon thereafter the government of such a creation is provided, extending from the supreme councils of the universe to the fathers of the constellations and the sovereigns of the local systems — the aggregations of those worlds which are designed subsequently to become the homes of the varied mortal races of will creatures; and each of these worlds will be presided over by a Planetary Prince.

32:2.8 (359.5) And then, when such a universe has been so completely organized and so repletely manned, does the Creator Son enter into the Father's proposal to create mortal man in their divine image.

32:2.9 (359.6) The organization of planetary abodes is still progressing in Nebadon, for this universe is, indeed, a young cluster in the starry and planetary realms of Orvonton. At the last registry there were 3,840,101 inhabited planets in Nebadon, and Satania, the local system of your world, is fairly typical of other systems.

32:2.10 (359.7) Satania is not a uniform physical system, a single astronomic unit or organization. Its 619 inhabited worlds are located in over five hundred different physical systems. Only five have more than two inhabited worlds, and of these only one has four peopled planets, while there are forty-six having two inhabited worlds.

32:2.11 (359.8) The Satania system of inhabited worlds is far removed from Uversa and that great sun cluster which functions as the physical or astronomic center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From Jerusem, the headquarters of Satania, it is over two hundred thousand light-years to the

밀한 직경 부분에서 매우 멀리 있다. 사타니아는 지역우주의 가장자리에 있고 네바돈은 현재 오르본톤 가장자리를 향해 잘 뻗어나가고 있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체계로부터 초우주의 중앙까지는 25만 광년보다 약간 가깝다.

네바돈 우주는 오르본톤 초우주 순환회로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회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우주들은: 아발론, 헨셀론, 산셀론, 포타론, 올버링, 화노빙, 알보링이다.

그러나 지역우주의 진화는 하나의 긴 이야기이다. 초우주를 다루는 글들이 이 주제를 소개하고, 지역 창조들을 취급하는 이 부분이 그것을 계속하며, 그러한 것에 뒤 따라, 유란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한다. 그러나 너희는 한 때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들 자신의 진화 세계에서 사람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대로 너희의 창조자 아들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숙독함으로써만 그러한 지역 창조들의 필사자들의 운명을 알맞게 이해할 수 있다.

제 3 장. 진화적 관념

완벽하게 안정된 유일한 창조는 중앙우주인 하보나인데,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생각과 영원한 아들의 말씀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보나는 실존적이고 완전하며 충만한 우주인데, 모든 것들의 중심인 영원한 신(神)들의 고향을 둘러싸고 있다. 일곱 초우주들의 창조계들은 유한하고 진화적이며 시종일관 진보적이다.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체계들은 모두가 기원에서는 진화적이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초우주들의 안정된 순환회로들 속으로 회전하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우주 역시 그것의 물리적 확대 그리고 발전 가능성들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의 영적 지위가 언제까지나 정착되고 안정되기 전까지는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지 못한다.

중앙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은 하나의 발전적 달성이다. 중앙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완전의 원형틀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영역들은 그 특정 세계들 또는 우주들의 진보를 위해 확정된 방법들에 의해 그 완전을 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거의 무한한 다양성이 창조자 아들들의 각각의 지역우주들을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교육단련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특성을 부여한다.

아버지의 신(神) 현존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physical center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far, far away in the dense diameter of the Milky Way. Satania is on the periphery of the local universe, and Nebadon is now well out towards the edge of Orvonton. From the outermost system of inhabited worlds to the center of the superuniverse is a trifle less than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light-years.

32.2.12 (360.1) The universe of Nebadon now swings far to the south and east in the superuniverse circuit of Orvonton. The nearest neighboring universes are: Avalon, Henselon, Sanselon, Portalon, Wolvering, Fanoving, and Alving.

32.2.13 (360.2) But the evolution of a local universe is a long narrative. Papers dealing with the superuniverse introduce this subject, those of this section, treating of the local creations, continue it, while those to follow, touching upon the history and destiny of Urantia, complete the story. But you can adequately comprehend the destiny of the mortals of such a local creation only by a perusal of the narratives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your Creator Son as he once lived the life of ma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your own evolutionary world.

3. THE EVOLUTIONARY IDEA

32.3.1 (360.3) The only creation that is perfectly settled is Havona, the central universe, which was made directly by the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word of the Eternal Son. Havona is an existential, perfect, and replete universe, surrounding the home of the eternal Deities,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creation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finite, evolutionary, and consistently progressive.

32.3.2 (360.4) The physical systems of time and space are all evolutionary in origin. They are not even physically stabilized until they are swung into the settled circuits of their superuniverses. Neither is a local universe settled in light and life until its physical possibilities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exhausted, and until the spiritual status of all its inhabited worlds has been forever settled and stabilized.

32.3.3 (360.5) Except in the central universe, perfection is a progressive attainment. In the central creation we have a pattern of perfection, but all other realms must attain that perfection by the methods established for the advancement of those particular worlds or universes. And an almost infinite variety characterizes the plans of the Creator Sons for organizing, evolving, disciplining, and settling their respective local universes.

32.3.4 (360.6) With the exception of the deity

우주는 어떤 면에서 중앙 또는 원형을 창조의 행정-관리적 조직체의 복제품이다. 비록 우주 아버지가 주재하는 우주에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의 혼과 함께 정말로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우주 안에서 기원되는 존재들의 마음에 내주하지는 않는다. 멀리 퍼지는 창조의 영적(靈的) 관련사들에 대한 조절과 규제 속에는 모든-지혜의 보상이 있는 것 같다. 중앙우주 안에 아버지는 것처럼 현존하지만, 그 완전한 창조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재하신다; 공간의 우주에서 아버지는 개인 안에 부재하시고, 자신의 주권 아들들에 의해 대표되어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자기 필사자 자녀들의 마음속에 친밀하게 현존하며, 이 의지적 창조체들의 마음속에 거주하는 신비 감시자들의 전(前)개인적 현존에 의해 영적으로 대표되어 존재하고 있다.

지역우주의 본부에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현존을 제외하고 자아-억제된 권한과 행정-관리적 자치권을 대표하는 그 모든 창조자 그리고 창조적 개인성들이 거주한다. 지역우주에서는 우주 아버지를 제외하고 중앙우주 안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등급의 지능 존재들 중 어떤 존재 그리고 각각의 어떤 것이 발견될 것이다. 비록 우주 아버지가 지역우주 안에 개인적으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는 그것의 창조자 아들, 때로는 하느님의 대리자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권세 속에서 최극의 그리고 주권적 통치자인 그 분에 의해 개인적으로 대표된다.

우리가 생명의 눈금을 더욱 내려갈수록,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신앙의 눈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보다 낮은 창조체들—그리고 때로는 높은 개인성들까지—은 자신의 창조자 아들들 안에서 우주 아버지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고양(高揚)의 시기, 발달의 완전함이 그들로 하여금 개인으로서 하느님을 보게 해주는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그들은 진보에서 점점 더 피곤해지고, 영적인 의구심을 지니며, 혼돈에 빠지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우주에 있는 진보하는 영적 목표들로부터 자신들을 고립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창조자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의 긴 투쟁에 두루, 주어진 상황들이 그러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기동안 창조체에게 가장 분명한 안전수단은 아버지의 현존이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는 진리-사실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이다.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이다: 창조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떤 주어진 우주에서의 개인성들은 처음에는 신(神)에 대하여 가지는 그들의 친족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오직 안정되어지고 믿을만하다. 창조체 기원이 기원자며 그리고 신성한 자인 근원들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

presence of the Father, every local universe is, in a certain sense, a du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or pattern creation.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personally present in the residential universe, he does not indwell the minds of the beings originating in that universe as he does literally dwell with the souls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There seems to be an all-wise compensation in the adjustment and regulation of the spiritual affairs of the far-flung creation. In the central universe the Father is personally present as such but absent in the minds of the children of that perfect creation; in the universes of space the Father is absent in person, being represented by his Sovereign Sons, while he is intimately present in the minds of his mortal children, being spiritually represented by the prepersonal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s that reside in the minds of these will creatures.

32:3.5 (360.7) On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there reside all those creator and creative personalities who represent self-contained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autonomy except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local universe there are to be found something of everyone and someone of almost every class of intelligent beings existing in the central universe except the Universal Father.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a local universe, he is personally represented by its Creator Son, sometime viceroy of God and subsequently supreme and sovereign ruler in his own right.

32:3.6 (361.1) The farther down the scale of life we go,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locate, with the eye of faith, the invisible Father. The lower creatures — and sometimes even the higher personalities — find it difficult always to envisage the Universal Father in his Creator Sons. And so, pending the time of their spiritual exaltation, when perfection of development will enable them to see God in person, they grow weary in progression, entertain spiritual doubts, stumble into confusion, and thus isolate themselves from the progressive spiritual aims of their time and universe. In this way they lose the ability to see the Father when beholding the Creator Son. The surest safeguard for the creature throughout the long struggle to attain the Father, during this time when inherent conditions make such attainment impossible, is tenaciously to hold on to the truth-fact of the Father's presence in his Sons. Literally and figuratively, spiritually and personally, the Father and the Sons are one. It is a fact: He who has seen a Creator Son has seen the Father.

32:3.7 (361.2) The personalities of a given universe are settled and dependable, at the start, only in accordance with their degree of kinship to Deity. When creature origin departs sufficiently far from the original and divine Sources, whether we are

의 아들들을 다루거나 또는 무한한 영에 속한 사명활동의 창조체들을 다루던지 상관없이, 부조화와 혼란, 그리고 때로는 반역—죄—에서의 가능성의 증가가 있다.

신(神) 기원의 완전 존재들을 제외하고, 초우주들에 있는 모든 의지적 창조체들은 진화적 본성을 갖는데, 내부적 실체에 있어서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영원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심지어는 고귀하게 영적인 개인성들도 삶에서 삶으로 그리고 구체에서 구체로 진보적 전환에 의해 삶의 계단을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그들이 신비 감시자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영적 상승과 우주 달성의 가능성 정도에 정말로 어떤 제한도 없다.

시간 창조체에서의 완전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별어들이 것이며, 진정한 개인성 소유물이다. 은혜의 요소들이 아낌없이 섞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체 달성은 개별적 노력과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결과,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개인성의 반응의 결과이다.

진화하는 기원이 동물적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유한한 지적 의지 창조체의 두 가지 기본적 유형 중 하나를 생성하는 배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어떤 개인성에게도 오점이 부가되지 않는다.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삶의 사다리를 기쁨에 넘쳐 올라왔던 그들이, 완전과 영원의 높이를 도달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더욱 큰 명예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영광의 높이에 다가왔을 때는, 바닥에서 정상까지 모든 삶의 위상에 대해 실제적인 지식을 체험하는 개인적 체험을 획득하였을 것이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창조자들의 지혜가 보인다. 모든 필사자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 자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완전함을 부여하는 것은 우주 아버지에게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길고도 차근차근히 안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연관된 훈련과 모험의 놀라운 체험, 삶의 실존의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는 체험을 너무나 온 좋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하보나를 빙빙 도는 우주들 안에는, 삶의 진화 단계를 상승하는 그들을 위한 원형틀 교사 안내자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충분한 숫자의 완전한 창조체들만이 제공된다. 진화적 유형의 개인성의 체험적 본성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창조체들의 항상-완전한 본성들을 갖는 자연적인 조화우주 보조물이다. 실체에 있어서, 완전한 창조체들과 완전하게 된 창조체들은 둘 모두 유한한 전체성의 면에서 미완성이다. 그러나 진화적 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체험적으로 완전하게 된 최종자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의 실존적으로 완전한 창조체들의 보완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두 유형들은 선천적인 한계들로부터의 해방을 발견하며 그리하여 창조체 지위의 궁극이라는 장엄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도할 수 있다.

dealing with the Sons of God or the creatures of ministry belonging to the Infinite Spirit, there is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disharmony, confusion, and sometimes rebellion — sin.

32:3.8 (361.3) Excepting perfect beings of Deity origin, all will creatures in the superuniverses are of evolutionary nature, beginning in lowly estate and climbing ever upward, in reality inward. Even highly spiritual personalities continue to ascend the scale of life by progressive translations from life to life and from sphere to sphere. And in the case of those who entertain the Mystery Monitors, there is indeed no limit to the possible heights of their spiritual ascent and universe attainment.

32:3.9 (361.4) The perfection of the creatures of time, when finally achieved, is wholly an acquirement, a bona fide personality possession. While the elements of grace are freely admixed, nevertheless, the creature attainments are the result of individual effort and actual living, personality reaction to the existing environment.

32:3.10 (361.5) The fact of animal evolutionary origin does not attach stigma to any personality in the sight of the universe as that is the exclusive method of producing one of the two basic types of finite intelligent will creatures. When the heights of perfection and eternity are attained, all the more honor to those who began at the bottom and joyfully climbed the ladder of life, round by round, and who, when they do reach the heights of glory, will have gained a personal experience which embodies an actual knowledge of every phase of life from the bottom to the top.

32:3.11 (361.6) In all this is shown the wisdom of the Creators. It would be just as easy for the Universal Father to make all mortals perfect beings, to impart perfection by his divine word. But that would deprive them of the wonderful experience of the adventure and training associated with the long and gradual inward climb, an experience to be had only by those who are so fortunate as to begin at the very bottom of living existence.

32:3.12 (362.1) In the universes encircling Havona there are provided only a sufficient number of perfect creatures to meet the need for pattern teacher guides for those who are ascending the evolutionary scale of life. The experiential nature of the evolutionary type of personality is the natural cosmic complement of the ever-perfect natures of the Paradise-Havona creatures. In reality, both perfect and perfected creatures are incomplete as regards finite totality. But in the complemental association of the existentially perfect creature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with the experientially perfected finalizers ascending from the evolutionary universes, both types find release from inherent limitations and thus may conjointly attempt to reach the sublime heights of the ultimate of creature status.

이 창조체 활동행위들은 칠중 신(神)의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우주 반향인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신성이, 최극존재의 힘-실제화 신(神)안에서, 신(神)에 의해서, 그리고 신(神)을 통하여 시간-공간 우주의 최극 창조자들의 진화하는 신성(神性)과 결합한다.

신성하게 완전한 창조체와 진화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창조체는 신성 잠재의 정도에 있어서 동등하다, 단지 종류에서 다를 뿐이다. 각각은 봉사의 최극위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진화적인 초우주들은 자신들의 상승하는 시민들에게 최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한 하보나에 의존하지만, 완전한 중앙우주는 그곳 하강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하게 되는 초우주들의 실존을 그렇게 필요로 한다.

유한 실체의 두 가지 주된 현시활동들, 타고난 완전성과 진화된 완전성은, 그들이 개인성들이든 혹은 우주들이든, 조화-협동하고 의존하고 집대성된다. 각각은 기능, 봉사, 그리고 운명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다른 하나가 필요하다.

제 4 장. 지역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자기 힘을 다른 존재들에게 그토록 많이 위임한 이후로, 그가 신(神) 동반자 관계의 일원으로서의 침묵을 지키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인성 권역과 조절자 중여를 제외한다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신(神) 협조자들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창조된 지능체들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부분을 수행하도록 허락하면서, 파라다이스 신(神)들로서는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듯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조화-협동 동료들 또는 종속된 연관-동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조 삼총사의 일원으로서 침묵을 지킨다.

하느님은 모든 지능적 창조체에게 필요한 기능과 체험을 충분히 납득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창조체들의 우주 운명이나 또는 가장 비천한 처지에서의 복지에 관련되게 하고, 하느님은 자신과, 모든 주어진 우주 상황 또는 창조적 사건에서 선천적으로 개제하는, 창조자 개인성들과 그리고 창조체 은하계에 이익을 돌리면서 활동으로부터 물러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역, 무한한 조화-협동에 대한 이러한 전시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 안에는 이들 예정된 대리자와 개인성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실재적, 글자그대로의, 개인적 참여에서의 부분이 있다. 아버지는 널리-퍼지는 모든 자신의 창조체의 복지를 위하여 이 모든 경로 안에서, 이를 통하여 일하신다.

지역우주의 방침, 처리행위, 관리-행정을 고려할 때,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창조자 아들의 개

32:3.13 (362.2) These creature transactions are the universe repercussions of actions and reactions within the Sevenfold Deity, wherein the eternal divinity of the Paradise Trinity is conjoined with the evolving divinity of the Supreme Creators of the time-space universes in, by, and through the power-actualiz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32:3.14 (362.3) The divinely perfect creature and the evolutionary perfected creature are equal in degree of divinity potential, but they differ in kind. Each must depend on the other to attain supremacy of service.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depend on perfect Havona to provide the final training for their ascending citizens, but so does the perfect central universe require the existence of the perfecting superuniverses to provide for the full development of its descending inhabitants.

32:3.15 (362.4) The two prime manifestations of finite reality, innate perfection and evolved perfection, be they personalities or universes, are co-ordinate, dependent, and integrated. Each requires the other to achieve completion of function, service, and destiny.

4. GOD'S RELATION TO A LOCAL UNIVERSE

32:4.1 (362.5) Do not entertain the idea that, since the Universal Father has delegated so much of himself and his power to others, he is a silent or inactive member of the Deity partnership. Aside from personality domains and Adjuster bestowal, he is apparently the least active of the Paradise Deities in that he allows his Deity co-ordinates, his Sons, and numerous created intelligences to perform so much in the carrying out of his eternal purpose. He is the silent member of the creative trio only in that he never does aught which any of his co-ordinate or subordinate associates can do.

32:4.2 (362.6) God has full understanding of the need of every intelligent creature for function and experience, and therefore, in every situation, be it concerned with the destiny of a universe or the welfare of the humblest of his creatures, God retires from activity in favor of the galaxy of creature and Creator personalities who inherently intervene between himself and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or creative event. But notwithstanding this retirement, this exhibition of infinite co-ordination, there is on God's part an actual, literal, and personal participation in these events by and through these ordained agencies and personalities. The Father is working in and through all these channels for the welfare of all his far-flung creation.

32:4.3 (363.1) As regards the policies, conduct, and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the Universal

인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느님의 아들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 속에 기원된 개인성들의 집단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또는 다른 어떤 창조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인간 존재들—그러한 연합들을 고려할 때 우주 아버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창조자 아들의 법칙, 별자리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영주들의 통치—그 우주를 위한 정해진 방침들과 과정들—이 항상 우세하다. 권한의 분할이 없으며; 신성한 힘 또는 목적의 상충된 활동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신(神)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창조자 아들은 윤리적 관계적-연합들의 모든 문제들, 어떤 주어진 집단 안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별존재들 또는 다른 어떤 등급에 대한 창조체들의 어떤 일부분의 관계들을 최극으로 통치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모든 창조에 두루 어떤 개별존재 창조체를 신성한 마음이 즐거워하도록 우주 아버지가 그 개별존재의 현재 지위 또는 미래 예상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무한한 목적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 안에서 아버지는 내주하는 조절자, 전(前)개인적 자기 영의 단편(斷片) 안에 실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는 또한 그러한 필사자 의지 창조체의 개인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 생각 조절자들, 우주 아버지의 증여 존재들은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인간 마음에 내주하지만 그러나 지역 창조계의 윤리적 관련사들과는 그 어떤 식별될 만한 연결도 없다. 그들은 세라핌천사 봉사뿐만 아니라 체계들, 별자리들, 또는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우주의 최극 법을, 의지로서 지니고 있는 창조자 아들의 통치와도 직접적으로 조화-협동하지 않는다.

내주 하는 조절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된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무한한 창조 이외의 모든 창조체들과 접촉하는 통합된 방식이다. 필사자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자신의 현존을 그렇게 현시하며, 또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더 이상의 계시는 신성하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아들들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우주들에 관하여 친밀하고도 완벽한 지식을 누리는 기능 구조를 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우주들의 우주의 세부적인 것에 것처럼 충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정통한 것에는 그 방법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도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광대한 창조계의 존재들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현존을 현시하는 것에 관하여 정보를 받아들이 수 있는 큰길을 인지할 수가 있다. 아버지는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모든 창조계의 모든 우주들의

Father acts in the person of his Creator Son. In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Sons of God, in the group associations of the personalities of origin in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y other creatures, such as human beings — as concerns such associations the Universal Father never intervenes. The law of the Creator Son, the rule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 the ordained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at universe — always prevail. There is no division of authority; never is there a cross working of divine power and purpose. The Deities are in perfect and eternal unanimity.

32.4.4 (363.2) The Creator Son rules supreme in all matters of ethical associations, the relations of any division of creatures to any other class of creatures or of two or more individuals within any given group; but such a plan does not mean that the Universal Father may not in his own way intervene and do aught that pleases the divine mind with any *individual creature* throughout all creation, as pertains to that individual's present status or future prospects and as concerns the Father's eternal plan and infinite purpose.

32.4.5 (363.3) In the mortal will creatures the Father is actually present in the indwelling Adjuster, a fragment of his prepersonal spirit; and the Father is also the source of the personality of such a mortal will creature.

32.4.6 (363.4) These Thought Adjusters, the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are comparatively isolated; they indwell human minds but have no discernible connection with the ethical affairs of a local creation. They are not directly coordinated with the seraphic service nor with the administration of systems, constellations, or a local universe, not even with the rule of a Creator Son, whose will is the supreme law of his universe.

32.4.7 (363.5) The indwelling Adjusters are one of God's separate but unified modes of contact with the creatures of his all but infinite creation. Thus does he who is invisible to mortal man manifest his presence, and could he do so, he would show himself to us in still other ways, but such further revelation is not divinely possible.

32.4.8 (363.6) We can see and understand the mechanism whereby the Sons enjoy intimate and complete knowledge regarding the universes of their jurisdiction; but we cannot fully comprehend the methods whereby God is so fully and personally conversant with the detail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lthough we at least can recognize the avenue whereby the Universal Father can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and manifest his presence to, the beings of his immense creation.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모든 체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대해 인식하며—개인적인 지식을 가지며—있다. 비록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기 자녀들과의 교제의 기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아신다.”는 것, 우리들 각자 각각에 대하여 “그가 우리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유념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너희의 우주 안에 그리고 너희의 가슴 안에, 우주 아버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중앙 거처의 일곱 주(主) 영들의 하나로서 그리고 특히 필사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조절자로서 제시되고 있다.

하느님은 자아-중심적인 개인성이 아니며;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자기 창조에게 그리고 창조체들에게 자유롭게 배분하신다. 그는 신(神)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안에서도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성하게 가능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우주 아버지는 실행하는 것이 다른 존재에게 가능한 모든 역할로부터 정말로 떠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우주의 본부에서 하느님 대신에 통치하는 창조자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사자 사람에게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주 아버지의 이상과 무한한 사랑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우주적 증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광대함과 관대함 둘 모두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 만약에 하느님이 우주 창조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보류하였다면, 그 나머지에 대하여 그는 영역들의 필사자들에게 생각 조절자들, 영속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필사자 후보자들 안에 그토록 끈기 있게 내주 하는 시간의 신비 감시자들을 아낌없이 증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가 개인성 소유와 잠재적인 영적 달성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를 닮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힘과 영광을 예비해 두신다.

제 5 장.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공간을 통과하는 우주들의 행진 속에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 너희 필사자들의 모든 투쟁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광대한 계획, 거대한 활동사업의 일부분이며, 어떤 한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한 삶의 기간에서 그것을 충분히 똑바로 알기가 불가능한 것은 떠맡고 있는 그 일의 광대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들이 지휘감독하고 능히 다스리는 영원한 구체적 투사의 한 부분이다. 경이롭고도 우주적인 전체 기능구조는 위대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

the Father is cognizant — has personal knowledge — of all the thoughts and acts of all the beings in all the systems of all the universes of all creation. Though we cannot fully grasp this technique of God's communion with his children, we can be strengthened in the assurance that the “Lord knows his children,” and that of each one of us “he takes note where we were born.”

32.4.9 (363.7) In your universe and in your heart the Universal Father is present, spiritually speaking, by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central abode and, specifically, by the divine Adjuster who lives and works and waits in the depths of the mortal mind.

32.4.10 (363.8) God is not a self-centered personality; the Father freely distributes himself to his creation and to his creatures. He lives and acts, not only in the Deities, but also in his Sons, whom he intrusts with the doing of everything that it is divinely possible for them to do. The Universal Father has truly divested himself of every function which it is possible for another being to perform. And this is just as true of mortal man as of the Creator Son who rules in God's stead at the headquarters of a local universe. Thus we behold the outworking of the ideal and infinit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32.4.11 (364.1) In this universal bestowal of himself we have abundant proof of both the magnitude and the magnanimity of the Father's divine nature. If God has withheld aught of himself from the universal creation, then of that residue he is in lavish generosity bestowing the Thought Adjusters upon the mortals of the realms, the Mystery Monitors of time, who so patiently indwell the mortal candidates for life everlasting.

32.4.12 (364.2) The Universal Father has poured out himself, as it were, to make all creation rich in personality possession and potential spiritual attainment. God has given us himself that we may be like him, and he has reserved for himself of power and glory only that which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those things for the love of which he has thus divested himself of all things else.

5.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32.5.1 (364.3) There is a great and glorious purpose in the march of the universes through space. All of your mortal struggling is not in vain. We are all part of an immense plan, a gigantic enterprise, and it is the vastness of the undertaking that renders it impossible to see very much of it at any one time and during any one life. We are all a part of an eternal project which the Gods are supervising and outworking. The whole marvelous and universal mechanism moves on majestically

한생각과 영원목적의 박자로 이루어진 음악에 맞추어 공간에 두루 장엄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원한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의 높은 영적 이상이다. 시간의 사건들과 물질적 실존의 투쟁들은 다른 편, 영적 실체와 고귀한 실존이라는 약속된 땅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짧은 기간의 발판에 불과하다. 물론 너희 필사자들은 영원한 목적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 대한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

개별적 일생, 영역에서의 존속 기간, 또는 어떤 일련의 연결된 사건들의 한 연대기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격리된 하나의 시간의 뻗침을 다루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 삶, 세월, 신(新)시대의 연속적 배열이, 하나의 직선 도로를 구성하면서, 영원의 무한한 표면을 순간적으로 번쩍이며 가로지르는, 시간의 격리된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장면 뒤 편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과 보다 완벽한 남득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해설은, 시간의 활동행위를 바닥에 깔려있는 영원의 목적과 기본 반응과 함께 설명하기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관시키기에도, 도무지 부적당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는 필사자 마음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영원을 끝이 없는 순환계로서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의 주기,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과도기 물질 주기와 동조되는 영원의 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영원의 주기와 연결되고 또한 그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시간의 구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일시적 존재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일시적 신(新)시대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 존재는, 조절자 융합의 영적 차원을 성취하는데 실패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죽음이라는 탈바꿈이 그들이 시간의 족쇄와 물질적 창조체에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오직 가능한 과정이 되는 것이며, 그로서 진보하는 영원의 행진에 영적 발걸음을 맞추어 힘차게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실존과 시간에서의 시험적 삶에서 생존을 겪으면, 그것이 너희를 영원 위에서, 아니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영원과 접촉하며, 영원한 시대의 순환계 둘레에 있는 공간세계들과 함께 언제까지나 그 위에서 회도는 회전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시간의 구역들은 일시적 형태로 번쩍 나타나서 개인성의 섬광과 같다; 그들은 한 때 나타나고, 그리고는 인간의 시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순환계 주위를 끝없이 진동하는, 보다 높은 삶에서 새로운 배우로서 그리고 계속되는 요소들로 다시 나타날 뿐이다. 우주 अभी

through space to the music of the meter of the infinite thought and the eternal purpose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32:5.2 (364.4) The eternal purpose of the eternal God is a high spiritual ideal. The events of time and the struggles of material existence are but the transient scaffolding which bridges over to the other side, to the promised land of spiritual reality and supernal existence. Of course, you mortals find it difficult to grasp the idea of an eternal purpose; you are virtually unable to comprehend the thought of eternity, something never beginning and never ending. Everything familiar to you has an end.

32:5.3 (364.5) As regards an individual life, the duration of a realm, or the chronology of any connected series of events, it would seem that we are dealing with an isolated stretch of time; everything seems to have a beginning and an end. And it would appear that a series of such experiences, lives, ages, or epochs, when successively arranged, constitutes a straightaway drive, an isolated event of time flashing momentarily across the infinite face of eternity. But when we look at all this from behind the scenes, a more comprehensive view and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suggest that such an explanation is inadequate, disconnected, and wholly unsuited properly to account for, and otherwise to correlate, the transactions of time with the underlying purposes and basic reactions of eternity.

32:5.4 (364.6) To me it seems more fitting, for purposes of explanation to the mortal mind, to conceive of eternity as a cycle and the eternal purpose as an endless circle, a cycle of eternity in some way synchronized with the transient material cycles of time. As regards the sectors of time connected with, and forming a part of, the cycle of eternity, we are forced to recognize that such temporary epochs are born, live, and die just as the temporary beings of time are born, live, and die. Most human beings die because, having failed to achieve the spirit level of Adjuster fusion, the metamorphosis of death constitutes the only possible procedure whereby they may escape the fetters of time and the bonds of material creation, thereby being enabled to strike spiritual step with the progressive procession of eternity. Having survived the trial life of time and material existence, it becomes possible for you to continue on in touch with, even as a part of, eternity, swinging on forever with the worlds of space around the circle of the eternal ages.

32:5.5 (365.1) The sectors of time are like the flashes of personality in temporal form; they appear for a season, and then they are lost to human sight, only to reappear as new actors and continuing factors in the higher life of the endless swing around the eternal circle. Eternity can hardly be

지의 중앙 거주지 처소 주위의 광대하고 그리고 길게 늘어난 순환계 주위를 움직이는 한정된 우주를 믿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 직선도로의 여정으로는 도저히 착상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영원은 시간의 유한한 마음의 존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것을 파악할 수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하지 않으며, 또 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나의 개념을 인간 마음에게 옮기는 일이 나에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납득을 어느 정도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묘사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나는 무한한 본성과 영원한 의미에 해당하는 이 가치들에 관한 너희의 생각들을 정형화 시키는 일에 너희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느님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든 광대한 권역에 속한 모든 창조체를 포용하는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한없는 기회, 무제한의 진보, 그리고 끝없는 생명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길 데 없는 생애의 무한한 보물들은 분투하고 있음에,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영원의 목표가 앞에 있다! 신성 달성의 모험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완전을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달리는 길의 걸음걸음마다 내주하는 조절자의 안내에 그리고 모든 육체 위에 그토록 자유롭게 거저 퍼부어진 우주 아들의 선한 영의 인도에 의지하면서, 신앙과 신뢰의 경주를 달리게 될 모든 인간 존재의 노력에는 확실한 승리의 왕관의 빛이 빛날 것이다.

[네바돈의 최극협의회에 일시적으로 배속되고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에 의해 이 임무에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conceived as a straightaway drive, in view of our belief in a delimited universe moving over a vast, elongated circle around the central dwelling place of the Universal Father.

32:5.6 (365.2) Frankly, eternity is incomprehensible to the finite mind of time. You simply cannot grasp it; you cannot comprehend it. I do not completely visualize it, and even if I did, it would be impossible for me to convey my concept to the human mind. Nevertheless, I have done my best to portray something of our viewpoint, to tell you somewhat of our understanding of things eternal. I am endeavoring to aid you in the crystallization of your thoughts about these values which are of infinite nature and eternal import.

32:5.7 (365.3) There is in the mind of God a plan which embraces every creature of all his vast domains, and this plan is an eternal purpose of boundless opportunity, unlimited progress, and endless life. And the infinite treasures of such a matchless career are yours for the striving!

32:5.8 (365.4) The goal of eternity is ahead! The adventure of divinity attainment lies before you! The race for perfection is on! whosoever will may enter, and certain victory will crown the efforts of every human being who will run the race of faith and trust, depending every step of the way on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on the guidance of that good spirit of the Universe Son, which so freely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32:5.9 (365.5)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upreme Council of Nebadon and assigned to this mission by Gabriel of Salvington.]

제 33 편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 032

유랜시아 책

034 ⇨

부 II. 지역우주

제 33 편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섹션

소개

제 1 장. 네바돈의 미가엘

제 2 장. 네바돈의 주권자

제 3 장. 우주 아들과 영

제 4 장. 가브리엘—우두머리 집행자

제 5 장. 삼위일체 대사

제 6 장. 일반적인 관리-행정

제 7 장. 네바돈의 법정

제 8 장. 입법 기능과 집행 기능

PAPER 33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Michael of Nebadon

2. The Sovereign of Nebadon

3. The Universe Son and Spirit

4. Gabriel — The Chief Executive

5. The Trinity Ambassadors

6. General Administration

7. The Courts of Nebadon

8.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Functions

소개

우주 아버지는 자신의 광대한 창조를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 반면,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는 창조자 아들의 개인을 통하여 기능하신다. 아버지는 지역우주의 관리-행정적 관련사들에 있어서 다르게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은 창조자 아들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녀들에게 맡겨져 있다. 지역우주에 대한 계획과 정책 그리고 관리-행정 조례들은 이 아들에 의해 형성되고 실행되는데, 그는 자신의 영 동료와 연관하여 집행 권한을 가브리엘에게 위임하고 사법 권한은 별자리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정영주들에게 위임한다.

INTRODUCTION

33:0.1 (366.1) WHILE the Universal Father most certainly rules over his vast creation, he functions in a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through the person of the Creator Son. The Father does not otherwise personally function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These matters are intrusted to the Creator Son and to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to their manifold children. The plan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acts of the local universe are formed and executed by this Son, who, in conjunction with his Spirit associate, delegates executive power to Gabriel and jurisdictional authority to the Constellation Fathers, System Sovereigns, and Planetary Princes.

제 1 장. 네바돈의 미가엘

우리들의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안에서 동시에 기원된 무한 정체성의 기원적 개념에서의 611,121번째 개인화구현이다. 네

1. MICHAEL OF NEBADON

33:1.1 (366.2) Our Creator Son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611,121st original concept of infinite identity of simultaneous origin in the Universal Father and

바돈의 미가엘은 이 611,121번째 신성과 무한성의 우주적 개념을 개인성구현 하고 있는 “오직하나 낳은 아들”이다. 구원자별에 있는 그의 본부는 빛의 삼중(三重) 맨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거주지는 그렇게 계층을 갖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가엘이 지능적 창조체 실존의 세 위상 모두에서의 삶을 체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 모론시아 그리고 물질적 위상들이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와 연관된 이름 때문에, 그는 때로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도 불린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영원한 아들, 우주 아버지 그리고 무한한 영의 실존적 파라다이스 연관-동료가 아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主)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만일 실제로 구원자별에 나타나고 네바돈에서 기능하였다면 그가 직접 현시하였을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힘들을 그의 영역 안에 소유한다. 미가엘은 그 외에 추가적인 힘과 권한을 소유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아들을 개인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우주에게 그리고 그 안에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현존을 충분히 대표하고 실제적으로 체현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아들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 관계들은 창조자 아들로 하여금 미숙한 창조체 존재들과의 개인성 접촉을 그리고 진화적 우주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행정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존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영향력 있게 한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구원자별에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 그가 행사할 것과 똑같은 영적으로 이끄는 힘, 영 중력(重力)을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행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 우주 아들은 또한 네바돈 우주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개인화구현이기도 하다. 창조자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아들의 영적 기세들에 관한 개인성 중심이다. 창조자 아들들은 칠중 하느님의 막강한 시간-공간 속성들의 최종적인 힘-개인성 초점화이다.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대리 개인성구현이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神性) 조화-협동이며, 무한한 영의 창조적 연관-동료이다. 우리들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게 주권자 아들은 모든 실천적인 의미들과 목적들에 대해 하느님이 된다. 그는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충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신(神)들 전체를 개인화시킨다. 이 아들과 그의 동료 영은 너희의 창조자 부모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최극 개인성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들은 초(超)최극—무한한 신(神) 개인성—이다.

창조자 아들의 개인 안에서 우리는, 만일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같이 구원자별에 제시되고 네바돈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루어졌을 만큼의, 막강하고 효력이 있으며 친절한 하나의 통치자이자 신성한 부모를 소유하고 있다.

the Eternal Son. The Michael of Nebadon is the “only-begotten Son” personalizing this 611,121st universal concept of divinity and infinity. His headquarters is in the threefold mansion of light on Salvington. And this dwelling is so ordered because Michael has experienced the living of all three phases of intelligent creature existence: spiritual, morontial, and material. Because of the name associated with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on Urantia, he is sometimes spoken of as Christ Michael.

33:1.2 (366.3) Our Creator Son is not the Eternal Son, the existential Paradise associat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Michael of Nebadon is not a member of the Paradise Trinity. Nevertheless our Master Son possesses in his realm all of the divine attributes and powers that the Eternal Son himself would manifest were he actually to be present on Salvington and functioning in Nebadon. Michael possesses even additional power and authority, for he not only personifies the Eternal Son but also fully represents and actually embodies the personality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o and in this local universe. He even represents the Father-Son. These relationships constitute a Creator Son the most powerful, versatile, and influential of all divine beings who are capable of direct administration of evolutionary universes and of personality contact with immature creature beings.

33:1.3 (366.4) Our Creator Son exerts the same spiritual drawing power, spirit gravity,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at the Eternal Son of Paradise would exert if he were personally present on Salvington, and *more*; this Universe Son is also the personific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universe of Nebadon. Creator Sons are personality centers for the spiritual forces of the Paradise Father-Son. Creator Sons are the final power-personality focalizations of the mighty time-space attributes of God the Sevenfold.

33:1.4 (367.1) The Creator Son is the vicegerent personaliz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divinity co-ordinate of the Eternal Son, and the creative associate of the Infinite Spirit. To our universe and all its inhabited worlds the Sovereign Son is,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God. He personifies all of the Paradise Deities which evolving mortals can discerningly comprehend. This Son and his Spirit associate *are* your creator parents. To you, Michael, the Creator Son, is the supreme personality; to you, the Eternal Son is supersupreme — an infinite Deity personality.

33:1.5 (367.2) In the person of the Creator Son we have a ruler and divine parent who is just as mighty, efficient, and beneficent as would b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if both were present on Salvington and engag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universe of

Nebadon.

제 2 장. 네바돈의 주권자

창조자 아들들을 관찰하면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더 닮고, 어떤 이들은 아들을 더 닮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무한한 부모들을 혼합적으로 닮은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영원한 아들을 더 많이 닮은 특색들과 속성들을 분명하게 현시한다.

미가엘은 이 지역우주를 조직하도록 선택되었으며, 그는 이곳에서 현재 최극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직접적인 힘은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선재(先在) 중력 순환회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성의 소멸과 관련되는 모든 최종적 집행 심판들을 하는 초우주 정부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역할에 대한 유보에 의해서 제한된다. 개인성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증여하시지만, 창조자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체 설계를 시작하며, 그들은 그들의 영 연관-동료들의 협동작업을 받아 에너지-물질의 새로운 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미가엘은 네바돈 지역우주에게 그리고 우주 안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아들의 개인화구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대표자, 창조 어머니 영이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마지막 증여로부터 돌아오면서,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그녀 자신을 종속시켰을 때, 이로써 주(主) 아들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였다.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들에 대한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이러한 종속은 이들 주(主)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神性)을 유한하게 현시할 수 있는 개인적 저장소를 이루게 하며, 한편 미가엘들의 창조체-증여 가능한 체험들은 그들로 하여금 최극존재의 체험적 신성을 묘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주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도 현재의 유한한 체험의 잠재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소진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우주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도 단독적인 주권을 위한 그러한 분별된-자격을 소유하지 않는다.

미가엘의 본부가 비록 공식적으로 네바돈의 수도인 구원자별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별자리와 체계 본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 행성들을 방문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파라다이스로 여행하고 자주 유버사에 들리는데, 그곳에서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조인한다. 그가 구원자별에서 떠나 있을 때, 그의 자리는 가브리엘이 대신하는데, 그때 그는 네바돈 우주의 대리통치자로서 기능한다.

2. THE SOVEREIGN OF NEBADON

33:2.1 (367.3) Observation of Creator Sons discloses that some resemble more the Father, some the Son, while others are a blend of both their infinite parents. Our Creator Son very definitely manifests traits and attributes which more resemble the Eternal Son.

33:2.2 (367.4) Michael elected to organize this local universe, and herein he now reigns supreme. His personal power is limited by the pre-existent gravity circuits centering at Paradise and by the reservation on the part of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all final executive judgments regarding the extinction of personality. Personality is the sole bestowal of the Father, but the Creator Sons, with the approval of the Eternal Son, do initiate new creature designs, and with the working co-operation of their Spirit associates they may attempt new transformations of energy-matter.

33:2.3 (367.5) Michael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Paradise Father-Son to and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erefore, when the Creative Mother Spirit, the local universe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ubordinated herself to Christ Michael upon the return from his final bestowal on Urantia, the Master Son thereby acquired jurisdiction over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33:2.4 (367.6) This subordination of the Divine Ministers to the Creator Sons of the local universes constitutes these Master Sons the personal repositories of the finitely manifestable divinity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while the creature-bestowal experiences of the Michaels qualify them to portray the experiential divinity of the Supreme Being. No other beings in the universes have thus personally exhausted the potentials of present finite experience, and no other beings in the universes possess such qualifications for solitary sovereignty.

33:2.5 (367.7) Although Michael's headquarters is officially located on Salvington, the capital of Nebadon, he spends much of his time visiting the constellation and system headquarters and even the individual planets. Periodically he journeys to Paradise and often to Uversa, where he counsels with the Ancients of Days. When he is away from Salvington, his place is assumed by Gabriel, who then functions as regent of the universe of Nebadon.

제 3 장. 우주 아들과 영

3. THE UNIVERSE SON AND SPIRIT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체에 널리 퍼지면서, 무한한 영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적으로 협력하는 기법에 의해 충만한 개인성 본질특성들을 획득하는 전문화 된 하나의 초점화구현으로서 각각의 지역우주 본부로부터 기능한다. 지역우주를 고려할 때, 창조자 아들의 행정-관리적 권한은 최극이다; 신성한 사명활동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완전하게 조화-협동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협조적이다.

구원자별의 우주 어머니 영, 네바돈의 통제와 관리-행정 속에 있는 미가엘의 연관-동료는 최극 영들의 여섯 번째 집단에 속하는데, 그 계층 중에서 611,121번째에 해당된다. 그녀는 미가엘이 파라다이스 의무에서 해방될 경우에 자진해서 그와 동행하였고 그의 우주 창조와 지배에 있어서 그 후로 항상 그와 함께 기능하였다.

주(主) 창조자 아들은 그의 우주에 대한 개인적 주권자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주 영은 아들과 함께 공동-지휘자이다. 영이 아들을 항상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로 인정하는 반면, 아들은 영을 영역의 모든 관련사에서 조화-협동하는 위치와 그리고 권한에서의 평등을 부여한다.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모든 사랑의 활동과 생명 증여에 있어서 항상 그리고 언제나 완전하게 일관되며 모든-지혜의 그리고 언제나-신실한 우주 영에 의해 그리고 천사의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다양한 수행원들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실제 안에서 영들과 영 개인성들의 어머니, 창조자 아들의 언제나 지나 제시되고 있는 모든-지혜를 가진 충고자,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신실하고 참된 현시활동이다.

아들은 자신의 지역우주 안에서 아버지로서 기능한다. 필사 창조체들이 납득하듯이, 영은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항상 아들을 도와주고 있는 우주의 관리-행정에 영존적으로 불가결한 존재이다. 폭동에 직면하여, 오직 아들과 그의 연관-동료 아들들만이 구원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영은 반역에 대응하거나 권한을 방어할 책임을 결코 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이 악으로 더럽혀지거나 죄의 지배를 받는 세계들에서 권한을 유하고 정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체함을 함에 있어서 요구될 수 있는 각각의 모든 것에서, 영은 아들을 항상 지탱한다. 오직 아들만이 그들의 공동 창조의 작품을 구출할 수 있지만, 필사자 사람들의 복지와 그들의 신성한 부모들의 영광을 위해 그토록 신실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영 조력자들, 하느님의 딸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광대한 집단과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끊임없는 협조 없이는 어떤 아들도 최종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창조체 증여를 완성함에 따라, 신성한 사명활동자에게 있었던 주기적 고립의 불확실성들이 종결되며, 아들의 우주 조력자는 확실성과 통제 안에서 언제나 정착되기 시작한다. 집회를 이룬 무리들 앞에

33:3.1 (368.1) While pervading all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Infinite Spirit functions from the headquarters of each local universe as a specialized focalization acquiring full personality qualities by the technique of creative co-operation with the Creator Son. As concerns a local univer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a Creator Son is supreme; the Infinite Spirit, as the Divine Minister, is wholly co-operative though perfectly co-ordinate.

33:3.2 (368.2) The Universe Mother Spirit of Salvington, the associate of Michael in the control and administration of Nebadon, is of the sixth group of Supreme Spirits, being the 611,121st of that order. She volunteered to accompany Michael on the occasion of his liberation from Paradise obligations and has ever since functioned with him in creating and governing his universe.

33:3.3 (368.3) The Master Creator Son is the personal sovereign of his universe, but in all the details of its management the Universe Spirit is codirector with the Son. While the Spirit ever acknowledges the Son as sovereign and ruler, the Son always accords the Spirit a co-ordinate position and equality of authority in all the affairs of the realm. In all his work of love and life bestowal the Creator Son is always and ever perfectly sustained and ably assisted by the all-wise and ever-faithful Universe Spirit and by all of her diversified retinue of angelic personalities. Such a Divine Minister is in reality the mother of spirits and spirit personalities, the ever-present and all-wise adviser of the Creator Son, a faithful and true manifestation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33:3.4 (368.4) The Son functions as a father in his local universe. The Spirit, as mortal creatures would understand, enacts the role of a mother, always assisting the Son and being everlastingly indispensable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In the face of insurrection only the Son and his associated Sons can function as deliverers. Never can the Spirit undertake to contest rebellion or defend authority, but ever does the Spirit sustain the Son in all of everything he may be required to experience in his efforts to stabilize government and uphold authority on worlds tainted with evil or dominated by sin. Only a Son can retrieve the work of their joint creation, but no Son could hope for final success without the incessant co-operation of the Divine Minister and her vast assemblage of spirit helpers, the daughters of God, who so faithfully and valiantly struggle for the welfare of mortal men and the glory of their divine parents.

33:3.5 (368.5) Upon the completion of the Creator Son's seventh and final creature bestowal, the uncertainties of periodic isolation terminate for the Divine Minister, and the Son's universe helper becomes forever settled in surety and control. It is

서 우주 영이 충실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아들에 대한 종속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처음 하는 인정은, 축제들 중의 축제인 창조자 아들의 주(主) 아들이로서의 즉위가 있을 때이다. 이 사건은 미가엘이 유란시아 중여 이후에 구원자별로 돌아왔을 때 네바돈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계기의 그 이전에는 우주 영이 우주 아들에 대한 종속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힘과 권한에서의 이러한 영에 의한 자발적인 포기 이후가 되고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의 손에 주어졌다.”라고 참되게 선포할 수 있었다.

창조 어머니 영에 의한 이 종속의 맹세가 있는 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가 자신의 영 동행자에게 영원히 의존함을 고귀하게 인정하였고, 자신의 우주 권역들에 대한 영 공동 통치자로 세우면서 그들의 모든 창조체들에게 그들이 아들에게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하였다; 최종적인 “동등성의 선언”이 제정되어 선포되었다. 아들이 비록 이 지역우주의 주권자이었지만, 그는 신성한 특성의 개인성과 속성들로 이루어진 모든 자질에 있어서 자신과 영의 동등성의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공간 세상의 낮은 창조체들에게도 가정 조직과 통치를 위한 초월적 원형들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가족에서의 그리고 자발적 결혼의 인간 제도에서의 높은 이상이다.

아들과 영은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가족의 아들과 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우주를 주재하고 있다. 우주 영을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동행자로 언급하고 그리고 영역들의 창조체들을 그들의 아들과 딸들로—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가족,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책임과 끝없는 보살핌이 있는 한 가족으로—여기는 것이 아주 어색한 것이 아니다.

아들은 우주 자녀에 대한 필연적인 창조를 시작하는 반면, 영은 동일한 이 어머니 영의 지도와 안내를 받아 돌보고 협력하는 영 개인성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실존하도록 하는 일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주 개인성들의 다른 유형들을 창조함에 있어서, 아들과 영은 모두 같이 기능하며, 어떤 창조적 활동에서도 다른 한 편의 조언과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제 4 장. 가브리엘—우두머리 집행자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이 착상한 개인성의 정체성과 이상에 대한 최초 개념의 개인성구현이다. 창조적 관계적-연합의 결속 안에서 창조자 아들과 어머니 영이 연합을 이루기 전인, 지역우주의 초기 시대

at the enthronement of the Creator Son as a Master Son, at the jubilee of jubilees, that the Universe Spirit, before the assembled hosts, first makes public and universal acknowledgment of subordination to the Son, pledging fidelity and obedience. This event occurred in Nebadon at the time of Michael's return to Salvington after the Urantian bestowal. Never before this momentous occasion did the Universe Spirit acknowledge subordination to the Universe Son, and not until after this voluntary relinquishment of power and authority by the Spirit could it be truthfully proclaimed of the Son that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committed to his hand.”

33:3.6 (369.1) After this pledge of subordination by the Creative Mother Spirit, Michael of Nebadon nobly acknowledged his eternal dependence on his Spirit companion, constituting the Spirit coruler of his universe domains and requiring all their creatures to pledge themselves in loyalty to the Spirit as they had to the Son; and there issued and went forth the final “Proclamation of Equality.” Though he was the sovereign of this local universe, the Son published to the worlds the fact of the Spirit's equality with him in all endowments of personality and attributes of divine character. And this becomes the transcendent pattern for the family organization and government of even the lowly creatures of the worlds of space. This is, in deed and in truth, the high ideal of the family and the human institution of voluntary marriage.

33:3.7 (369.2) The Son and the Spirit now preside over the universe much as a father and mother watch over, and minister to, their family of sons and daughters. It is not altogether out of place to refer to the Universe Spirit as the creative companion of the Creator Son and to regard the creatures of the realms as their sons and daughters — a grand and glorious family but one of untold responsibilities and endless watchcare.

33:3.8 (369.3) The Son initiates the creation of certain of the universe children, while the Spirit is solely responsible for bringing into existence the numerous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who minister and serve under the direction and guidance of this selfsame Mother Spirit. In the creation of other types of universe personalities, both the Son and the Spirit function together, and in no creative act does the one do aught without the counsel and approval of the other.

4. GABRIEL — THE CHIEF EXECUTIVE

33:4.1 (369.4)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the personalization of the first concept of identity and ideal of personality conceived by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Going back to the early days of the local universe, before the union of the Creator Son and

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과 딸로 이루어진 그들의 다양한 가족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한 이 두 개인들의 이러한 초기이자 자유로운 관계적-연합에 대한 최초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아들과 영의 최고 영 개인성,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지혜와 장엄의 그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만이 각각의 지역우주에 생겨난다.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신성(神性) 안에서 무제한적 숫자의 아들들을 창조할 수 있고 또 사실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아들은 무한한 영의 딸과의 연합 안에서 각각의 우주에서 오직 하나의 빛나는 새벽별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들과 비슷한 존재이고 그들의 창조적인 특권들을 제외한 그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자유롭게 누린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은 신(神)의 속성들에서는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본성에 있어서는 우주 아들과 비슷하다.

새 우주의 그 부모들의 첫 태생인 이 존재는 어느 한 쪽의 선조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여러 특색들을 소유하는 독특한 개인성, 전에 없었던 다재다능함과 상상하지 못하였던 재능을 가진 존재이다. 숭고한 이 개인성은 영의 창조적 상상력과 병합된, 아들의 신성한 의지를 포용한다. 빛나는 새벽별의 생각과 행동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 둘 모두를 충분히 항상 대변할 것이다. 그러한 존재는 영적인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물질적인 진화 의지적 창조체들 둘 모두를 널리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정심 가득한 접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놀랄만한 행정-관리자인데,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인 행정-관리적 대리자다. 아들과 영의 창조와 생명 수여를 제외하면 가브리엘의 현존 없이 중요한 우주 절차들이 협의된 일이 결코 없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그것의 관리-행정에 관한 모든 집행적 요청들에 대한 중재자이다. 이 우주 집행자는 자신의 일을 위한 재능을 충만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아 창조되었지만, 우리 지역우주의 성장과 진화와 관계된 체험을 획득하였다.

가브리엘은 지역우주 안에서 비(非)개인적 관련사들과 관계되는 초우주 명령들을 집행하는 우두머리 관리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집단 심판과 섭리시대 부활들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들 역시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에게 실행이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초우주와 지역우주 둘 모두의 통치자들의 연관 우두머리 집행자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행정-관리적 보좌관들로 이루어진 유능한 무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업무를 위해 창조되었고, 진화적인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좌관들 이외에, 가브리

the Mother Spirit in the bonds of creative association, back to the time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their versatile family of sons and daughters, the first conjoint act of this early and free association of these two divine persons results in the creation of the highest spirit personality of the Son and the Spiri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33:4.2 (369.5) Only one such being of wisdom and majesty is brought forth in each local universe.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can, in fact do, create an unlimited number of Sons in divinity equal to themselves; but such Sons, in union with the Daughters of the Infinite Spirit, can create only one Bright and Morning Star in each universe, a being like themselves and partaking freely of their combined natures but not of their creative prerogatives. Gabriel of Salvington is like the Universe Son in divinity of nature though considerably limited in the attributes of Deity.

33:4.3 (369.6) This first-born of the parents of a new universe is a unique personality possessing many wonderful traits not visibly present in either ancestor, a being of unprecedented versatility and unimagined brilliance. This supernal personality embraces the divine will of the Son combined with the creative imagination of the Spirit. The thoughts and act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ill ever be fully representative of both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Such a being is also capable of a broad understanding of, and sympathetic contact with, both the spiritual seraphic hosts and the material evolutionary will creatures.

33:4.4 (370.1)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not a creator, but he is a marvelous administrator, being the personal administrative representative of the Creator Son. Aside from creation and life impartation the Son and the Spirit never confer upon important universe procedures without Gabriel's presence.

33:4.5 (370.2) Gabriel of Salvington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arbiter of all executive appeals respecting its administration. This universe executive was created fully endowed for his work, but he has gained experience with the growth and evolution of our local creation.

33:4.6 (370.3) Gabriel is the chief officer of execution for superuniverse mandates relating to nonpersonal affairs in the local universe. Most matters pertaining to mass judgment and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adjudicated by the Ancients of Days, are also delegated to Gabriel and his staff for execution. Gabriel is thus the combined chief executive of both the super- and the local universe rulers. He has at his command an able corp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created for their special work, who are unrevealed to evolutionary mortals. In addition to these

엘은 네바돈에서 기능하는 전체 또는 일부의 천상의 존재 계층들을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하늘의 무리”—천군(天軍)—의 우두머리 명령자이기도 하다.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는 선생들이 아니며; 행정-관리자들이다. 그들은 미가엘이 창조체 증여로 육신화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떠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증여들의 기간 동안 가브리엘은 육신화한 아들의 뜻을 항상 따랐으며,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협조를 받아 후대 증여들 기간 동안의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실재적 지도자가 되었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의 필사 증여 이후로 언제까지나 밀접하게 유란시아의 역사와 발전으로 정체성을 확인 해왔다.

증여 세계들에서 그리고 일반적 부활 그리고 특별 부활 명령이 내려지는 시기들을 제외하면, 필사자들은 지역우주 창조의 행정-관리적 업무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지역우주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동안 그를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계층이나 계급이든지 행정-관리자들로서, 너희는 가브리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제 5 장. 삼위일체 대사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개인성들의 관리-행정은 초우주들의 통치와 함께 끝난다. 지역우주들의 특징은 이원적(二元的) 감독, 아버지-어머니 개념의 시작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이다; 우주의 어머니는 신성한 사명활동자, 지역우주 창조 영이다. 아무튼, 각각의 지역우주는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로부터 특정한 개인성들의 현존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네바돈에서 이 파라다이스 집단의 우두머리 중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은 네바돈 지역우주에 배정된 연합으로 늘 계신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은 이 삼위일체 아들은 창조자 아들의 법정에 보내진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대리자기도 한데;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최극 삼위일체 개인성들의 여섯 번째 계층 중에서 611,121번인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체들의 경배와 찬미를 거절하는 숭고한 존엄성의 존재이며 장엄한 겸손의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형제 미가엘에 대한 복종을 결코 선언한 적이 없는 전체 네바돈에서의 유일한 개인성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주권자 아들에게 충고자의 역할을 한다. 창조자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는 높은 우주 협의회를 주관할 수 있지만 요청된 바를 제외하고는 우주의 집행적 관련사들에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바돈에 온 파라다이스의 이 대사는 지역우주 정부의 지배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

assistants, Gabriel may employ any and all of the orders of celestial beings functioning in Nebadon, and he is also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ies of heaven” — the celestial hosts.

33:4.7 (370.4) Gabriel and his staff are not teachers; they are administrators. They were never known to depart from their regular work except when Michael was incarnated on a creature bestowal. During such bestowals Gabriel was ever attendant on the will of the incarnated Son, and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Union of Days, he became the actual director of universe affairs during the later bestowals. Gabriel has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Urantia ever since the mortal bestowal of Michael.

33:4.8 (370.5) Aside from meeting Gabriel on the bestowal worlds and at the times of general- and special-resurrection roll calls, mortals will seldom encounter him as they ascend through the local universe until they are inducted into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local creation. As administrators, of whatever order or degree, you will come under the direction of Gabriel.

5. THE TRINITY AMBASSADORS

33:5.1 (370.6) The administration of Trinity-origin personalities ends with the government of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are characterized by dual supervision, the beginning of the father-mother concept. The universe father is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is the Divine Minister,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Every local universe is, however, blessed with the presence of certain personalities from the central universe and Paradise. At the head of this Paradise group in Nebadon is the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 Immanuel of Salvington — the Union of Days assigned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n a certain sense this high Trinity Son is also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court of the Creator Son; hence his name, Immanuel.

33:5.2 (370.7) Immanuel of Salvington, number 611,121 of the sixth order of Supreme Trinity Personalities, is a being of sublime dignity and of such superb condescension that he refuses the worship and adoration of all living creatures. He bear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personality in all Nebadon who has never acknowledged subordination to his brother Michael. He functions as adviser to the Sovereign Son but gives counsel only on request. In the absence of the Creator Son he might preside over any high universe council but would not otherwise participate in the executive affairs of the universe except as requested.

33:5.3 (371.1) This ambassador of Paradise to Nebadon is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라 별자리들의 본부에서 봉사하면서 그와 연락하는 형제들,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감독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화하는 지역우주의 집행적인 관련사들에 대해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요청되지 않는 한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결코 충고를 하거나 원조를 제안하지 않는다. 별자리들에 보내진 이 파라다이스 대사들은 지역우주들에서 충고의 직무를 담당하는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의 최종적인 개인적 현존을 대표한다. 별자리들은 지역 체계들보다 더 밀접하게 초우주 관리-행정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지역우주에서 출생한 개인성들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관리-운영된다.

제 6 장. 일반적인 관리-행정

가브리엘은 네바돈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실제적인 행정-관리자이다. 미가엘이 구원자별을 떠나는 것이 우주 관련사들의 질서 있는 행위를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미가엘이 없는 동안, 최근에 파라다이스에서 오르본톤 주(主) 아들의 재결합에서의 임무에서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은 우주의 대리통치자가 된다. 그러한 때에 가브리엘은 모든 주요 문제들에 대해 항상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의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

아버지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의 수석 보좌관이다. 빛나는 새벽별이 구원자별에 없을 때, 그의 임무들은 기원적인 이 멜기세덱 아들에 의해 대행된다.

우주의 다양한 부차적 관리-행정 당국은 어떤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체계 정부는 그것에 소속된 행성들의 복지를 보살피는 반면, 살아있는 존재들의 육신적인 지위, 생물학적 문제들에 더욱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별자리 통치자들은 서로 다른 행성들과 체계들에 보급된 사회적 상황과 행정적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별자리 정부는 주로 통일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 통치자들은 영역들의 영적인 지위에 더 많이 관여한다.

대사(大使)들은 사법 명령에 의해 지정되고 다른 우주들에 대해 우주들을 대표한다. 영사들은 다른 별자리에게 그리고 우주 본부에게 별자리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입법 명령에 의해 지정되고 오직 지역우주의 범위 안에서만 기능한다. 입회자들은 다른 체계들에게 그리고 별자리 수도에서 체계를 대표하도록 체계 주권자의 집행 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그들 역시 지역우주의 한계 안에서만 기능한다.

local universe government. Neither does he exercise authoritative jurisdiction in the executive affairs of an evolving local universe except in the supervision of his liaison brethren, the Faithfuls of Days, serving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33:5.4 (371.2) The Faithfuls of Days, like the Union of Days, never proffer advice or offer assistance to the constellation rulers unless it is asked for. These Paradise ambassadors to the constellations represent the final personal presence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functioning in advisory roles in the local universes. Constellation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an local systems, which are administered exclusively by personalities native to the local universe.

6. GENERAL ADMINISTRATION

33:6.1 (371.3) Gabriel is the chief executive and actual administrator of Nebadon. Michael's absence from Salvington in no way interferes with the orderly conduct of universe affairs. During the absence of Michael, as recently on the mission of reunion of Orvonton Master Sons on Paradise, Gabriel is the regent of the universe. At such times Gabriel always seeks the counsel of Immanuel of Salvington regarding all major problems.

33:6.2 (371.4) The Father Melchizedek is Gabriel's first assistant. When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absent from Salvington, his responsibilities are assumed by this original Melchizedek Son.

33:6.3 (371.5) The various subadministrations of the universe have assigned to them certain special domains of responsibility. While, in general, a system government looks after the welfare of its planets, it is more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physical status of living beings, with biologic problems. In turn, the constellation rulers pay especial attention to the social and governmental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different planets and systems. A constellation government is chiefly exercised over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Still higher up, the universe rulers are more occupied with the spiritual status of the realms.

33:6.4 (371.6) Ambassadors are appointed by judicial decree and represent universes to other universes. Consuls are representatives of constellations to one another and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appointed by legislative decree and function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Observers are commissioned by executive decree of a System Sovereign to represent that system to other systems and at the constellation capital, and they, too, function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방송이 구원자별로부터 체계 본부, 별자리 본부, 그리고 각각의 행성들에게로 동시에 보내진다. 보다 높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은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동료들과 소식을 나누게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주 방송은 그들의 영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에게 확장된다. 행성들 사이의 상호통신은 영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세계들만이 부인되고 있다.

별자리 방송은 별자리의 본부로부터 별자리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주기적으로 보내어진다.

연대기(年代記)는 구원자별에 있는 특별한 집단의 존재들에 의해 계산되고 평가되며 수정된다. 네바돈의 표준일은 유란시아의 시간으로 18일 6시간 2분 30초에 해당한다. 네바돈의 1년은 유버사 순환회로에 관계된 우주 진동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며 표준 우주 시간으로 100일과 같은데, 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년에 해당된다.

구원자별로부터 방송되는 네바돈 시간은 이 지역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자리들과 체계들에게 표준이 된다. 각각의 별자리는 네바돈 시간에 의해 그 관련사들을 수행하지만, 체계들은 개별 행성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 자신의 연대기를 유지한다.

사타니아에서의 하루는, 예루셈에서 계산된 것처럼,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1시간, 4분, 15초) 짧다. 이 시간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자별 시간 또는 우주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타니아 시간 또는 체계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 시간은 우주 시간이다.

제 7 장. 네바돈의 법정

주(主) 아들 미가엘은 오직 세 가지 일들 즉: 창조, 유지, 돌봄에만 최극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우주의 사법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창조자들은 자기 창조체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결코 앉지 않으며, 그것은 높은 훈련과 실제적인 창조체 체험을 가진 창조체들의 독점적인 기능이다.

네바돈의 전체 사법 기능구조는 가브리엘의 감독 아래에 있다. 구원자별에 위치한 고등법원들은 체계 법원들로부터 올라오는 항소 사건들과 일반적인 우주 유입 문제들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 우주 법원들에는 70개의 지부가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 10개 분야들로 구성된 일곱 부서로 기능한다. 재판하는 모든 문제들에는 완전 선제자들 중 한 명의 판사와 선제 체험을 가진 한 명의 집행관으로 구성된 이원적(二元的) 직책이 주재한다.

33:6.5 (371.7) From Salvington, broadcasts are simultaneously directed to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the system headquarters, and to individual planets. All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are able to utilize this service for communication with their fellows scattered throughout the universe. The universe broadcast is extended to all inhabited worlds regardless of their spiritual status. Planetary intercommunication is denied only those worlds under spiritual quarantine.

33:6.6 (372.1) Constellation broadcasts are periodically sent out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by the chief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33:6.7 (372.2) Chronology is reckoned, computed, and rectified by a special group of beings on Salvington. The standard day of Nebadon is equal to eighteen days and six hours of Urantia time, plus two and one-half minutes. The Nebadon year consists of a segment of the time of universe swing in relation to the Uversa circuit and is equal to one hundred days of standard universe time, about five years of Urantia time.

33:6.8 (372.3) Nebadon time, broadcast from Salvington, is the standard for all constellations and systems in this local universe. Each constellation conducts its affairs by Nebadon time, but the systems maintain their own chronology, as do the individual planets.

33:6.9 (372.4) The day in Satania, as reckoned on Jerusalem, is a little less (1 hour, 4 minutes, 15 seconds) than three days of Urantia time. These times are generally known as Salvington or universe time, and Satania or system time. Standard time is universe time.

7. THE COURTS OF NEBADON

33:7.1 (372.5) The Master Son, Michael, is supremely concerned with but three things: creation, sustenance, and ministry. He does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judicial work of the universe. Creators never sit in judgment on their creatures; that is the exclusive function of creatures of high training and actual creature experience.

33:7.2 (372.6) The entire judicial mechanism of Nebadon is under the supervision of Gabriel. The high courts, located on Salvington, are occupied with problems of general universe import and with the appellate cases coming up from the system tribunals. There are seventy branches of these universe courts, and they function in seven divisions of ten sections each. In all matters of adjudication there presides a dual magistracy consisting of one judge of perfection antecedents and one magistrate of ascendant experience.

재판에 관하여, 지역우주 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1. 지역우주의 관리-행정은 창조, 진화, 유지, 그리고 돌보는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주 법정은 영원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건들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그것이 유란시아에서 맞이하는 자연적인 죽음과 관계가 없지만, 만일 계속되는 존속, 영원한 삶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오르본톤의 법정으로 회부되며, 만일 그 개별존재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되면, 소멸에 대한 모든 판결문들은 초(超)정부의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2. 아들들로서의 권한과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불이행 또는 변절도 아들의 법정에서 결코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오해는 즉시 초우주 법정으로 이관될 것이다.

3. 영적 고립에 뒤이어 일어나는 지역 창조에서의 충만한 영적 지위의 동료관계에 이르는 지역 우주-지역체계와 같은—의 모든 법령 개정에 관한 재허가의 문제는 초우주의 고등 의회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구원자별의 법원들이 최종적이며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그들의 결정과 선고에 대해 항소하거나 피할 길은 전혀 없다.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적 투쟁들이 불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우주에서는 공의(公義)와 신성한 공정성이 지배한다. 너희는 질서가 잘 잡힌 우주에서 살고 있으며, 너희는 곧 공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비롭게 취급받게 될 것이다.

제 8 장. 입법 기능과 집행 기능

네바돈의 수도인 구원자별에는, 진정한 입법 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본부 세계들은 주로 판결에 관계한다. 지역우주의 입법 의회들은 100개 별자리들의 본부에 위치하고 있다. 체계들은 주로 지역 창조체들에 대한 집행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작업에 관계한다. 체계 주권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별자리 통치자들의 입법 명령들을 실행하며 우주의 고등법원들의 사법 판결들을 집행한다.

우주 본부에서는 진정한 입법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반면, 구원자별에서는 다양한 자문회의 그리고 연구회의들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들의

33:7.3 (372.7) As regards jurisdiction, the local universe courts are limited in the following matters:

33:7.4 (372.8) 1. The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is concerned with creation, evolution, maintenance, and ministry. The universe tribunals are, therefore, denied the right to pass upon those cases involving the question of eternal life and death. This has no reference to natural death as it obtains on Urantia, but if the question of the right of continued existence, life eternal, comes up for adjudication, it must be referred to the tribunals of Orvonton, and if decided adversely to the individual, all sentences of extinction are carried out upon the orders, and through the agencies, of the rulers of the superuniverse.

33:7.5 (372.9) 2. The default or defection of any of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which jeopardizes their status and authority as Sons is never adjudicated in the tribunals of a Son; such a misunderstanding would be immediately carried to the superuniverse courts.

33:7.6 (372.10) 3. The question of the readmission of any constituent part of a local universe — such as a local system — to the fellowship of full spiritual status in the local creation subsequent to spiritual isolation must be concurred in by the high assembly of the superuniverse.

33:7.7 (373.1) In all other matters the courts of Salvington are final and supreme. There is no appeal and no escape from their decisions and decrees.

33:7.8 (373.2) However unfairly human contentions may sometimes appear to be adjudicated on Urantia, in the universe justice and divine equity do prevail. You are living in a well-ordered universe, and sooner or later you may depend upon being dealt with justly, even mercifully.

8.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FUNCTIONS

33:8.1 (373.3)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there are no true legislative bodies.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re concerned largely with adjudication.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local universe are located on the headquarter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systems are chiefly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local creation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ir associates enforce the legislative mandates of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execute the judicial decrees of the high courts of the universe.

33:8.2 (373.4) While true legislation is not enacted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re do function on Salvington a variety of advisory and research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수행된다. 어떤 것들은 영구적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목표 성취에 따라 해체된다.

지역우주의 최고협의회는 각 체계로부터 3명의 위원들과 각 별자리로부터 7명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고립된 체계들은 이 회의에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참여하여 거기에서 협의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도록 관찰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최극 신성권한의 100개 협의회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해 있다. 이 협의회들의 의장들은 가브리엘의 즉각적인 활동 내각을 구성한다.

고등 우주 자문협의회들의 모든 평결들은 구원자별 사법 기관들 또는 별자리들의 입법 의회들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 고등 협의회들은 자기들의 권고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들의 충고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네바돈 법정이 실행 판결을 내리지만, 만일 그들의 충고가 지역 상황 또는 응급 상황에 맞추어져야만 한다면, 그것들은 신중한 법령 제정을 위해 별자리의 입법 의회들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행을 위해 체계 권한자들에게 내려보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등 협의회들은 실체 안에서 우주의 초(超)입법기관들이지만, 그들은 법령 제정권과 실행 권한 없이 기능한다.

우리가 “법원”과 “의회”라는 말로 우주 관리-행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 영적 활동행위는 상응하는 이름들이 내포하는 유란시아의 매우 원시적이고 물질적인 활동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assemblies, variously constituted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scope and purpose. Some are permanent; others disband upon the accomplishment of their objective.

33:8.3 (373.5) *The supreme council* of the local universe is made up of three members from each system and seven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stellation. Systems in isolation do not have representation in this assembly, but they are permitted to send observers who attend and study all its deliberations.

33:8.4 (373.6) *The one hundred councils of supreme sanction* are also situated on Salvington. The presidents of these councils constitute the immediate working cabinet of Gabriel.

33:8.5 (373.7) All findings of the high universe advisory councils are referred either to the Salvington judicial bodies or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high councils are without authority or power to enforce their recommendations. If their advice is founded on the fundamental laws of the universe, then will the Nebadon courts issue rulings of execution; but if their recommendations have to do with local or emergency conditions, they must pass down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 for deliberative enactment and then to the system authorities for execution. These high councils are, in reality, the universe superlegislatures, but they function without the authority of enactment and without the power of execution.

33:8.6 (373.8) While we speak of universe administration in terms of “courts” and “assemblie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se spiritual transaction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more primitive and material activities of Urantia which bear corresponding names.

33:8.7 (373.9) [Presented by the Chief of the Archangels of Nebadon.]

제 34 편 지역우주 어머니 영

⇨ 033

유랜시아 책

035 ⇨

부 II. 지역우주

제 34 편 지역우주 어머니 영

색션

소개

- 제 1 장. 창조 영의 개인성구현
- 제 2 장.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본성
- 제 3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아들과 영
- 제 4 장. 지역우주 순환회로들
- 제 5 장. 영의 사명활동
-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영
- 제 7 장. 영과 육신

소개

창조자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 의해 개인성구현되면,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이 창조자 아들과 함께 우주의 영역으로 갈 자신의 새롭고도 독특한 대표자를 개별존재화 시키며, 처음에는 물리적 조직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새롭게 투사된 우주의 창조체들에 대한 사명활동과 창조에서 그의 동행자가 된다.

창조 영은 창조자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둘 모두에게 반응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를 관리-행정하는 일에 조화-협동하고 연관한다.

이들 딸 영은 무한한 영의 본질을 갖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사명활동의 일에 동시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물리적 창조에 있어서 우주 아들이 원형들을 제공하는 반면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들의 물질화를 일으킨다. 아들은 힘의 설계들에 작용하지만, 영은 이 에너지 창조체들을 물리적 실체들로 변환시킨다. 무한한 영의 이 초기 우주 현존을 개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아들에게 있어서 영 연관-동료는 개인적이며 항상 하나의 별개 개

PAPER 34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SECTIONS

Introduction

- 1. Personalization of the Creative Spirit
- 2. Nature of the Divine Minister
- 3. The Son and Spirit in Time and Space
- 4. The Local Universe Circuits
- 5. The Ministry of the Spirit
- 6. The Spirit in Man
- 7. The Spirit and the Flesh

INTRODUCTION

34:0.1 (374.1) WHEN a Creator Son is personalized by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n does the Infinite Spirit individualize a new and unique representation of himself to accompany this Creator Son to the realms of space, there to be his companion, first, in physical organization and, later, in creation and ministry to the creatures of the newly projected universe.

34:0.2 (374.2) A Creative Spirit reacts to both physical and spiritual realities; so does a Creator Son; and thus are they co-ordinate and associate in the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of time and space.

34:0.3 (374.3) These Daughter Spirits are of the essence of the Infinite Spirit, but they cannot function in the work of physical creation and spiritual ministry simultaneously. In physical creation the Universe Son provides the pattern while the Universe Spirit initiates the materialization of physical realities. The Son operates in the power designs, but the Spirit transforms these energy creations into physical substances. Although it is somewhat difficult to

별존재로 기능한다.

portray this early universe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as a person, nevertheless, to the Creator Son the Spirit associate is personal and has always functioned as a distinct individual.

제 1 장. 창조 영의 개인성구현

별과 행성 군(群)의 물리적 조직의 완성 그리고 초우주 힘 중심들에 의한 에너지 순환회로의 설립이 이루어진 후, 그의 지역우주 창조적 초점 화구현을 통한 그리고 그 지도 하에 작동하는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에 의한 이 원시적 창조 작업에 뒤이어서, 새롭게 조직된 우주 안에 생명이 그 다음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미가엘 아들의 선언이 반포된다. 이러한 의지의 천명을 파라다이스가 승인함에 따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승인의 반응이 나타나며, 뒤이어 신(神)들의 영적 광채 안에서, 자신의 초우주에서 새로운 이 창조를 조직화하고 있는 주(主) 영의 사라짐이 뒤 따른다. 한편으로는 다른 주(主) 영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이 중앙 거점 근처로 접근하며, 그 뒤를 이어서, 신(神)-포용된 주(主) 영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인지되면서 창발 될 때, “초기 분출”이라고 알려진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섬광, 관계된 초우주 본부와 같이 멀리에서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 현상이다; 거의 납득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현시활동과 동시에, 관계된 지역우주 안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 영 현존과 힘의 본성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들 파라다이스 현상에 응답하여, 창조자 아들의 바로 그 현존 안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개인적 대표가 즉각적으로 개인성구현 된다. 그가 바로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창조자 아들의 개별존재화된 창조 영 조력자는 그의 개인적인 창조적 연관-동료,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되었다.

공동 창조자의 새로운 이 개인적 분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지역우주의 모든 세계들과 존재들에게 보급하도록 수립된 흐름들과 규정된 영 힘의 순환회로들과 영적 영향력이 시작된다. 실제 안에서, 이 새롭게 개인적인 현존은 물리적인 우주 조직에 대한 아들의 초기 작업에 있어서 그의 선제(先在)하는 그리고 보다 덜 개인적인 연관-동료의 변환이다.

이것은 몇 마디로 엄청난 드라마를 진술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들 중대한 활동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들은 순간적이고 불가해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1. PERSONALIZATION OF THE CREATIVE SPIRIT

34:1.1 (374.4)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a starry and planetary clust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nergy circuits by the superuniverse power centers, subsequent to this preliminary work of creation by the agencies of the Infinite Spirit, operating through, and under the direction of, his local universe creative focalization, there goes forth the proclamation of the Michael Son that life is next to be projected in the newly organized universe. Upon the Paradise recognition of this declaration of intention, there occurs a reaction of approval in the Paradise Trinity, followed by the disappearance in the spiritual shining of the Deities of the Master Spirit in whose superuniverse this new creation is organizing. Meanwhile the other Master Spirits draw near this central lodgment of the Paradise Deities, and subsequently, when the Deity-embraced Master Spirit emerges to the recognition of his fellows, there occurs what is known as a “primary eruption.” This is a tremendous spiritual flash, a phenomenon clearly discernible as far away a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and simultaneously with this little-understood Trinity manifestation there occurs a marked change in the nature of the creative spirit presence and power of the Infinite Spirit resident in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In response to these Paradise phenomena there immediately personalizes, in the very presence of the Creator Son, a new persona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is is the Divine Minister. The individualized Creative Spirit helper of the Creator Son has become his personal creative associate,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34:1.2 (375.1) From and through this new personal segregation of the Conjoint Creator there proceed the established currents and the ordained circuits of spirit power and spiritual influence destined to pervade all the worlds and beings of that local universe. In reality, this new and personal presence is but a transformation of the pre-existent and less personal associate of the Son in his earlier work of physical universe organization.

34:1.3 (375.2) This is the relation of a stupendous drama in few words, but it represents about all that can be told regarding these momentous transactions. They are instantaneous, inscrutable, and incomprehensible; the secret of the technique and procedure resides in the bosom of the

하나 있다: 순전히 물리적인 창조 또는 조직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우주에서의 영 현존은 파라다이스 무한한 영의 영으로부터 불충분하게 차별화되었다; 반면에, 하느님들의 비밀스런 포옹으로부터 감독하는 주(主) 영이 다시 나타나고 영적 에너지의 섬광을 뒤따른 후에, 무한한 영과의 변화하는 연락에 있었던 그 주(主) 영의 개인적 유사 형태로 무한한 영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이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변한다. 그리하여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천문적 사법권을 갖는 초우주의 주(主) 영의 그것으로 가미된 개인적 본성을 획득한다.

무한한 영의 개인성구현된 현존, 지역우주의 창조 어머니 영이 사타니아에서는 신성한 사명활동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천적 의도들과 영적 목적들에게 신(神)의 이 현시활동은 신성한 개별 존재, 영 개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창조자 아들에 의해 그렇게 인정되고 존중된다. 우리 지역우주에서 영이 그 결과로서 이 아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에게 위탁되었다.”라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역화와 개인성구현을 통해서였다.

제 2 장.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본성

생명 창조의 시기에 현저한 개인성 탈바꿈을 겪었음으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그때부터 개인으로 기능하며 그들의 지역 창조의 광대한 관련자들의 계획과 관리에서 창조자 아들과 곧바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협조한다. 많은 우주 존재 유형들에게, 무한한 영에 대한 이 설명조차도 최종적인 미가엘 증여 이전(以前)의 시대기간에는 전적인 개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창조자 아들이 주(主) 아들의 주권적 권한자로 상승된 이후에는, 창조 어머니 영이 모든 접촉하는 개별 존재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개인적 본질특성이 증강된다.

우주 영은 창조자 아들과의 최초 관계적-연합에서부터, 반(反)중력의 충분한 자질을 포함하면서, 무한한 영의 물리적-통제 속성 전체를 소유한다. 우주 영은 개인적 지위를 달성함에 따라 무한한 영이 직접 제시되었을 경우와 같이 지역우주에서 충분하고 완벽한 마음 중력 통제를 행사한다.

각각의 지역우주에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 중의 하나에 체현된 무한한 영의 본성과 고유 특징들에 따라 기능한다. 모든 우주 영들은 기본적인 균일성 있는 반

Paradise Trinity. Of only one thing are we certain: The Spirit presence in the local universe during the time of purely physical creation or organization was incompletely differentiated from the spirit of the Paradise Infinite Spirit; whereas, after the reappearance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from the secret embrace of the Gods and following the flash of spiritual energy,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uddenly and completely changes to the personal likeness of that Master Spirit who was in transmuting liaison with the Infinite Spirit.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us acquires a personal nature tinged by that of the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of astronomic jurisdiction.

34:1.4 (375.3) This personalized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 Creative Mother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is known in Satania as the Divine Minister.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spiritual purposes this manifestation of Deity is a divine individual, a spirit person. And she is so recognized and regarded by the Creator Son. It is through this loc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our local universe that the Spirit could subsequently become so fully subject to the Creator Son that of this Son it was truly said,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intrusted to him.”

2. NATURE OF THE DIVINE MINISTER

34:2.1 (375.4) Having undergone marked personality metamorphosis at the time of life creation, the Divine Minister thereafter functions as a person and co-operates in a very personal manner with the Creator Son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xtensive affairs of their local creation. To many universe types of being, even this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may not appear to be wholly personal during the ages preceding the final Michael bestowal; but subsequent to the elevation of the Creator Son to the sovereign authority of a Master Son, the Creative Mother Spirit becomes so augmented in personal qualities as to be personally recognized by all contacting individuals.

34:2.2 (375.5) From the earliest association with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Spirit possesses all the physical-control attributes of the Infinite Spirit, including the full endowment of antigravity. Upon the attainment of personal status the Universe Spirit exerts just as full and complete control of mind gravity, in the local universe, as would the Infinite Spirit if personally present.

34:2.3 (375.6) In each local universe the Divine Ministe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Infinite Spirit as embodied in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While there is a basic uniformity of

면, 일곱 주(主) 영들 중의 하나를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 결정된 기능의 다양성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들에서 지역우주 어머니 영들의 기능상 다양한 기법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본질적인 영적 속성들에 있어서 이 영들은 서로 동일하며, 초우주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영적이고 전적으로 신성하다.

창조 영은 세계들의 창조체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창조자 아들과 공동 책임을 가지며 이들 창조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아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 생명은 창조 영의 대리자를 사명활동되고 유지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능 창조체들의 우주를 창조함에 있어서 창조 어머니 영은 처음에는 우주 완전성의 구체에서 기능하며, 빛나는 새벽별의 산출에 아들과 협력한다. 그 후에 행성들의 창조된 존재들의 계층에 영의 후손들이 점점 더 접근하며, 마치 아들이, 영역들의 필사자들과 실제적으로 접촉이 헬기선택들로부터 물질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는 것과 같다. 필사 창조체들의 후기 진화에 생명운반자 아들이 영역에 존재하는 유기체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적 몸체를 제공하며, 반면에 우주 영은 “생명의 호흡”을 제공한다.

대우주의 일곱 번째 부분이 여러 면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생각 깊은 탐구자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들에서 굉장히 잘 균형을 이룬 창조의 진화를 내다본다. 우리가 오르본톤에서 이러한 고도의 균형을 예견하는 것은 이 초우주를 통솔하는 영이 높은 곳의 주(主) 영들의 우두머리기 때문이며, 영원한 세 신(神)들 모두의 특색과 성격들에 대한 균형 잡힌 연합과 완전한 조화-협동을 체현하는 영 지능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리고 뒤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미래 시대의 어느 시점에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 3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아들과 영

영원한 아들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도 시간 또는 공간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널리 퍼지며 영원의 순환계 속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후손들과 이루는 그들의 개인적 접촉에 있어서

character in all Universe Spirits, there is also a diversity of function, determined by their origin throug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is differential of origin accounts for the diverse techniques in the functio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s in different superuniverses. But in all essential spiritual attributes these Spirits are identical, equally spiritual and wholly divine, irrespective of superuniverse differentiation.

34:2.4 (376.1) The Creative Spirit is coresponsible with the Creator Son in producing the creatures of the worlds and never fails the Son in all efforts to uphold and conserve these creations. Life is ministered and maintained through the agency of the Creative Spirit. “You send forth your Spirit, and they are created. You renew the face of the earth.”

34:2.5 (376.2) In the creation of a universe of intelligent creatures the Creative Mother Spirit functions first in the sphere of universe perfection, collaborating with the Son in the production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ubsequently the offspring of the Spirit increasingly approach the order of created beings on the planets, even as the Sons grade downward from the Melchizedeks to the Material Sons, who actually contact with the mortals of the realms. In the later evolution of mortal creatures the Life Carrier Sons provide the physical body, fabricated out of the existing organized material of the realm, while the Universe Spirit contributes the “breath of life.”

34:2.6 (376.3) While the seven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may, in many respects, be tardy in development, thoughtful students of our problems look forward to the evolution of an extraordinarily well-balanced creation in the ages to come. We predict this high degree of symmetry in Orvonton because the presiding Spirit of this superuniverse is the chief of the Master Spirits on high, being a spirit intelligence embodying the balanced union and perfect co-ordination of the traits and character of all three of the eternal Deities. We are tardy and backward in comparison with other sectors, but there undoubtedly awaits us a transcendent development and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sometime in the eternal ages of the future.

3. THE SON AND SPIRIT IN TIME AND SPACE

34:3.1 (376.4) Neither the Eternal Son nor the Infinite Spirit is limited or conditioned by either time or space, but most of their offspring are.

34:3.2 (376.5) The Infinite Spirit pervades all space and indwells the circle of eternity. Still, in their personal contact with the children of time, the

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덜하다 하더라도 현세적인 요소들을 종종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 사명활동들 대부분은 공간을 무시하지만 우주 실체의 다양한 차원들의 조화-협동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지연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 메신저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시간이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다; 비슷한 실존개체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개인적 특권에 있어서 창조 영은 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간과 무관하지만,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 별자리 또는 체계 본부에는 그러한 우주 영의 분화된 개인적 현존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우주 전체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리고 널리 존재하며, 한 세계에서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시간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만, 창조 영은 자신의 우주 직무에서 언제나 제한을 받는다. 창조적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 두루 순간적으로 활동하지만; 창조 영은 우주적 마음의 직무에 있어서 시간을 고려해야하며 우주 아들의 개인적 특권을 그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게 할 때는 예외이다. 순수-영 기능에 있어서 창조 영은 우주 반영성의 신비한 기능에 협조할 때와 같이 역시 시간과 무관하게 활동한다.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무관하게 작동하더라도, 창조자 아들들의 모든 기능들은 공간 한계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에 진화하는 세계들의 활동행위들이 제외된다면, 이 미가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창조자 아들은 시간에 의해서는 방해받지 않지만, 공간에 의해서는 제한 된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직접 존재할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 자신의 우주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초우주에서 반영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그러하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자 아들의 이해심 있는 조력자이고 공간에 관한 그의 선천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보상하도록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두 존재들이 행정-관리적 연합 속에서 기능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 창조의 한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실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우주 전반을 실천적으로 관찰할 때,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은 대개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각자에게 다른 하나의 시간과 공간 해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절대 존재들만이 절대의미에서 시간 및 공간과 무관하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존재에 종속된 개인들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의 지배를 받는다.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must often reckon with temporal elements, though not so much with space. Many mind ministries ignore space but suffer a time lag in effecting co-ordination of diverse levels of universe reality. A Solitary Messenger is virtually independent of space except that time is actually required in traveling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and there are similar entities unknown to you.

34:3.3 (376.6) In personal prerogatives a Creative Spirit is wholly and entirely independent of space, but not of time. There is no specialized personal presence of such a Universe Spirit on either the constellation or system headquarters. She is equally and diffusely present throughout her entire local universe and is, therefore, just as literally and personally present on one world as on any other.

34:3.4 (376.7) Only as regards the element of time is a Creative Spirit ever limited in her universe ministrations. A Creator Son acts instantaneously throughout his universe; but the Creative Spirit must reckon with time in the ministration of the universal mind except as she consciously and designedly avails herself of the personal prerogatives of the Universe Son. In pure-spirit function the Creative Spirit also acts independently of time as well as in her collaboration with the mysterious function of universe reflectivity.

34:3.5 (377.1) Though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operates independently of both time and space, all functions of the Creator Sons are not exempt from space limitations. If the transactio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excepted, these Michael Sons seem to be able to operate relatively independent of time. A Creator Son is not handicapped by time, but he is conditioned by space; he cannot personally be in two places at the same time. Michael of Nebadon acts timelessly within his own universe and by reflectivity practically so in the superuniverse. He communicates timelessly with the Eternal Son directly.

34:3.6 (377.2) The Divine Minister is the understanding helper of the Creator Son, enabling him to overcome and atone for his inherent limitations regarding space, for when these two function in administrative union, they are practically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within the confines of their local creation. Therefore, as practically observed throughout a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usually function independently of both time and space since there is always available to each the time and the space liberation of the other.

34:3.7 (377.3) Only absolute beings are independent of time and space in the absolute sense. The majority of the subordinate persons of both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subject to

창조 영은 “공간 의식”을 갖게 될 때, 그녀는 제한된 “공간 권역”을 그녀의 것으로 인지를 준비하며, 영역에서는 그녀가 다른 모든 공간에서는 제약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존재는 존재의 의식의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 4 장. 지역우주 순환회로들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 순환회로들이 있다:

1. 창조자 아들의 증여의 영, 위로자, 진리의 영.
2.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 순환회로, 성령
3. 다소 통합된 활동들 그러나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지능체-사명활동 순환회로.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우주 현존의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데 그것은 증여 아들이 그러한 하나의 구체에 대한 영적 직함을 받아들이고 후에 그에 의해 세계에 배풀어진다. 증여된 이 위로자는, 지역우주에서 진리의 개인화구현인 그를 향한 모든 진리 탐구자들을 영원히 이끄는 영적 기세다. 이 영은 창조자 아들의 선천적인 자질인데, 대우주의 주(主) 순환회로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개인성 현존으로부터 유래된 것과 같이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창발 한다.

창조자 아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의 개인적 현존은 지역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의 기능들은 방해받지 않으며, 이는 신성한 이 현존은 창조자 아들의 개인성으로부터 유래된 반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개인 속에 기능적으로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역우주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자 아들의 영은 아들의 직접적인 현존과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기능하지만, 그녀의 개인적 영과는 그렇지 않다.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성령은 그녀의 직접적인 현존이 구원자별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영 현존은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창조자 아들의 영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어머니 영은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과 중심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적 영향, 성령으로 활동한다.

both time and space.

34:3.8 (377.4) When a Creative Spirit becomes “space conscious,” she is preparing to recognize a circumscribed “space domain” as hers, a realm in which to be space free in contradistinction to all other space by which she would be conditioned. One is free to choose and act only within the realm of one’s consciousness.

4. THE LOCAL UNIVERSE CIRCUITS

34:4.1 (377.5) There are three distinct spirit circuits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34:4.2 (377.6) 1. The bestowal spirit of the Creator Son, the Comforter, the Spirit of Truth.

34:4.3 (377.7) 2. The spirit circuit of the Divine Minister, the Holy Spirit.

34:4.4 (377.8) 3. The intelligence-ministry circuit, including the more or less unified activities but diverse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34:4.5 (377.9) The Creator Sons are endowed with a spirit of universe presence in many ways analogous to that of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is is the Spirit of Truth which is poured out upon a world by a bestowal Son after he receives spiritual title to such a sphere. This bestowed Comforter is the spiritual force which ever draws all truth seekers towards Him who is the personification of truth in the local universe. This spirit is an inherent endowment of the Creator Son, emerging from his divine nature just as the master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are derived from the personality presences of the Paradise Deities.

34:4.6 (377.10) The Creator Son may come and go; his personal presence may be in the local universe or elsewhere; yet the Spirit of Truth functions undisturbed, for this divine presence, while derived from the personality of the Creator Son, is functionally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Divine Minister.

34:4.7 (378.1) The Universe Mother Spirit, however, never leaves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world.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may and does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Son, but not so with her personal spirit. The Holy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would become nonfunctional if her personal presence should be removed from Salvington. Her spirit presence seems to be fixed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 and it is this very fact that enables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to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whereabouts of the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acts as the universe focus and center of the Spirit of Truth as well as of her own personal

창조자 아버지-아들과 창조 어머니 영은 둘 모두 자신들의 지역우주 자녀들의 마음 자질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창조 영은 자신이 개인적 특권을 자질로서 부여받기 전에는 마음을 중여하지 않는다.

지역우주 안에 있는 개인성의 초(超)진화 계층들은 초우주 마음 원형들의 지역우주 유형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진화적인 생명인 인간과 인간 이하 계층들은 마음 봉사사명의 보조 영 유형들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지역우주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창조이다. 이들 마음-영들은 성격에서는 비슷하지만, 힘에서는 다양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창조자로부터 따로 떨어진 개인성들로 간주될 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주 영의 본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일곱 보조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주어졌다: 지혜의 영, 경배의 영, 조언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납득의 영, 그리고—신속한 감지력—직관의 영이다.

이것들은 선지자가 환상의 상징 속에서 보았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등불들과 같은”, “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4명과 20명의 파수자들의 좌석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모습이 혼동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 수도에 속한다. 4명과 20명의 장로들의 좌석들은 예루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너희의 지역체계의 본부들이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왔다.”—지역체계들에게 보내지는 우주 방송들—은 구원자별에 대해서였다. 또한 그는 지역우주의 방향지도 통제 창조체들, 본부 세계의 살아있는 나침반들을 보았다. 네바돈에 있는 이 방향지도 통제는 구원자별의 네 통제 창조체들에 의해 유지되며, 그들은 우주 흐름들 위에 작용하고 첫 번째로 기능하는 마음-영, 직관의 보조자, “신속한 납득”의 영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네 창조체들—짐승으로 불렸던—에 대한 설명은 유감스럽게도 망쳐진 것이었다; 그들은 견줄 데 없는 아름다움과 멋진 형태를 하고 있다.

나침반의 네 지점들은 네바돈의 생명 안에서 보편적이며 선천적이다. 살아있는 모든 창조체들은 이러한 방향지도 흐름들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신체 기관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창조체 창조계들은 우주에 두루 각각의 행성에 이르기까지 중복되어 있는데, 세계들의 자력(磁力)과 관련되어, 동물 유기체의 극히 미세한 몸체들의 집단

influence, the Holy Spirit.

34:4.8 (378.2) The Creator Father-Son and the Creative Mother Spirit both contribute variously to the mind endowment of their local universe children. But the Creative Spirit does not bestow mind until she is endowed with personal prerogatives.

34:4.9 (378.3) The superevolutionary orders of personality in a local universe are endowed with the local universe type of the superuniverse pattern of mind. The human and the subhuman orders of evolutionary life are endowed with the adjutant spirit types of mind ministration.

34:4.10 (378.4)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the creation of the Divine Minister of a local universe. These mind-spirits are similar in character but diverse in power, and all partake alike of the nature of the Universe Spirit, although they are hardly regarded as personalities apart from their Mother Creator. The seven adjutants have been given the following names: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worship*,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knowledge*, the spirit of *courage*, the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intuition* — of quick perception.

34:4.11 (378.5) These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like lamps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the prophet saw in the symbols of vision. But he did not see the seats of the four and twenty sentinels about these seven adjutant mind-spirits. This record represents the confusion of two presentations, one pertaining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the other to the system capital. The seats of the four and twenty elders are on Jerusal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34:4.12 (378.6) But it was of Salvington that John wrote: “And out of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 the universe broadcasts to the local systems. He also envisaged the directional control creatures of the local universe, the living compasses of the headquarters world. This directional control in Nebadon is maintained by the four control creatures of Salvington, who operate over the universe currents and are ably assisted by the first functioning mind-spirit, the adjutant of intuition, the spirit of “quick understanding.” But the description of these four creatures — called beasts — has been sadly marred; they are of unparalleled beauty and exquisite form.

34:4.13 (378.7) The four points of the compass are universal and inherent in the life of Nebadon. All living creatures possess bodily units which are sensitive and responsive to these directional currents. These creature creations are duplicated on down through the universe to the individual planets and, in conjunction with the magnetic

들을 그렇게 활성화하여 이들 방향 세포들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한다. 그리하여 방위 감각은 우주의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언제까지나 고정되어 있다. 이 감각은 인류에게 의식적 소유로서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몸체들은 이 글이 씌어 질 무렵에 유란시아에서 최초로 관찰되었다.

제 5 장. 영의 사명활동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자 아들의 일곱 번째 증여가 있기까지 생명의 형성과 새로운 존재들의 계층들의 창조에 그와 협동하며, 그 다음에, 그가 우주의 충만한 주권자로 상승된 후에는, 세계 사명활동과 행성 진보의 미래업무에서 아들 및 아들의 증여된 영과 계속 협동한다.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영은 진화적 발전의 일을 시작하며, 영역의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식물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 유기체들을, 그 다음에는 인간 실존의 최초 계층들을 증여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각각의 수여는 최초이자 원시적인 단계들로부터 의지 창조체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행성 생명의 진화적 잠재가 더욱 드러나는 일에 기여한다. 영의 이러한 노력은 일곱 보조자들, 약속의 영들, 진화하는 행성들의 통합하고 조화-협동하는 영-마음을 통하여 주로 이행되었으며, 사람의 종족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개념들과 영적인 이상들로 향하도록 언제까지나 그리고 연합하여 인도한다.

필사자 사람은 진화 창조체들의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경배와 지혜의 보조자들에 대한 접수능력을 개발할 때 마음과 관련하여 영의 사명활동을 처음 체험한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보조자의 이 사명활동은 영적인 사명활동의 문지방을 마음 진화가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배-와 지혜-기능의 그러한 마음들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적인 순환회로들 안에 포함된다.

마음이 성령의 사명활동과 함께 그렇게 자질로서 부여될 때,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영적 현존—생각 조절자—을 선택할 수 있는(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마음들이 생각 조절자들을 받을 준비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증여된 아들이 모든 필사자들에 대한 행성 사명활동을 위하여 진리의 영을 해방시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의 현존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한다.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영 연락이 세계들을 두루 떠돌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상승하는 종족들의 창조체들의 혼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진화하는 행성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

forces of the worlds, so activate the hosts of microscopic bodies in the animal organism that these direction cells ever point north and south. Thus is the sense of orientation forever fixed in the living beings of the universe. This sense is not wholly wanting as a conscious possession by mankind. These bodies were first observed on Urantia about the time of this narration.

5. THE MINISTRY OF THE SPIRIT

34:5.1 (379.1) The Divine Minister co-operates with the Creator Son in the formulation of life and the creation of new orders of beings up to the time of his seventh bestowal and, subsequently, after his elevation to the full sovereignty of the universe,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the Son and the Son's bestowed spirit in the further work of world ministry and planetary progression.

34:5.2 (379.2) On the inhabited worlds the Spirit begins the work of evolutionary progression, starting with the lifeless material of the realm, first endowing vegetable life, then the animal organisms, then the first orders of human existence; and each succeeding impartation contributes to the further unfolding of the evolutionary potential of planetary life from the initial and primitive stages to the appearance of will creatures. This labor of the Spirit is largely effected through the seven adjutants, the spirits of promise, the unifying and co-ordinating spirit-mind of the evolving planets, ever and unitedly leading the races of men towards higher ideas and spiritual ideals.

34:5.3 (379.3) Mortal man first experiences the ministry of the Spirit in conjunction with mind when the purely animal mind of evolutionary creatures develops reception capacity for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of wisdom. This ministry of the sixth and seventh adjutants indicates mind evolution crossing the threshold of spiritual ministry. And immediately are such minds of worship- and wisdom-function included in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 Divine Minister.

34:5.4 (379.4) When mind is thus endowed with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it possesses the capacity fo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choosing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 the Thought Adjuster. But it is not until a bestowal Son has liberated the Spirit of Truth for planetary ministry to all mortals that all normal minds are automatically prepared for the recept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Spirit of Truth works as one with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This dual spirit liaison hovers over the worlds, seeking to teach truth and to spiritually enlighten the minds of men, to inspire the souls of the creatures of the ascending races, and to lead the peoples dwelling on the evolutionary planets

여금 신성한 운명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그들이 영원토록 향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 영은 기능과 힘의 면에서 증여 아들의 임무 전체와 본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개인적 수용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제한된다. 성령은 인간 태도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되며 사람의 의지의 결정과 협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명활동은 신성한 인도에 더욱 충분히 복종하는 그 필사자들의 내적(內的) 삶의 성화(聖化)와 영성화에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개별존재들로서 너희는 창조자 아버지-아들 혹은 창조 어머니 영의 영 실존개체나 또는 분리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신비 감시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사명활동은 개별존재의 마음의 생각하는 중심부와 접촉하지도 않으며 또한 내주하지도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의 전(前)개인적 실체의 명확한 개별존재화이며, 그 마음의 바로 한 부분으로서 필사자 마음에 실제로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병합된 영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언제나 지나 일한다.

무한한 영의 우주 딸에서의 성령,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에서의 진리의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영이 진화 필사자 안에 또는 그와 함께 현존하는 것은, 영적 자질과 사명활동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러한 필사자가 하느님의 아들관계에 대한 신앙-사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본질성을 갖추게 한다.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영

거주되는 행성의 발전하는 진화와 그 거주자들의 더 깊은 영성화로, 부가적인 영적 영향들이 그러한 성숙된 개인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음 통제와 영 인식에서 필사자들이 진보하게 되면, 이러한 복합적 영 사명활동들은 기능적으로 점점 더 조화-협동을 이룩하게 된다; 그것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포괄적 사명활동과 점점 더 혼합된다.

비록 신성(神性)이 현시활동 안에서 복수(複數)라고 하더라도, 인간 체험 안에서 신(神)은 단수이고 언제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체험에 있어서 영적 사명활동도 복수가 아니다. 기원의 복수에 상관없이, 모든 영 영향들은 기능적으로 하나이다. 그것들은 정말로 하나인데, 대우주의 창조체들 안에 그리고 그들에 대해 칠중 하느님의 영 사명활동이다; 그리고 창조체들이 영의 이 통합하는 사명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접수성에서 성장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최극위 하느님의 사명활동이 된다.

영원한 영광의 고지(高地)로부터 신성한 영

ever towards their Paradise goal of divine destiny.

34:5.5 (379.5) Though the Spirit of Truth is poured out upon all flesh, this spirit of the Son is almost wholly limited in function and power by man's personal reception of that which constitutes the sum and substance of the mission of the bestowal Son. The Holy Spirit is partly independent of human attitude and partially conditioned by the decisions and co-operation of the will of man. Nevertheless,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becomes increasingly effective in the sanctification and spiritualization of the inner life of those mortals who the more fully obey the divine leadings.

34:5.6 (379.6) As individuals you do not personally possess a segregated portion or entity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Father-Son or the Creative Mother Spirit; these ministries do not contact with, nor indwell, the thinking centers of the individual's mind as do the Mystery Monitors. Thought Adjusters are definite individualizations of the prepersonal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indwelling the mortal mind as a very part of that mind, and they ever work in perfect harmony with the combined spirits of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34:5.7 (380.1)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Spirit of Truth of the Universe Son of the Eternal Son, and of the Adjuster-spirit of the Paradise Father in or with an evolutionary mortal, denotes symmetry of spiritual endowment and ministry and qualifies such a mortal consciously to realize the faith-fact of sonship with God.

6. THE SPIRIT IN MAN

34:6.1 (380.2) With the advancing evolution of an inhabited planet and the further spiritualization of its inhabitants, additional spiritual influences may be received by such mature personalities. As mortals progress in mind control and spirit perception, these multiple spirit ministries become more and more co-ordinate in function; they become increasingly blended with the overministry of the Paradise Trinity.

34:6.2 (380.3) Although Divinity may be plural in manifestation, in human experience Deity is singular, always *one*. Neither is spiritual ministry plural in human experience. Regardless of plurality of origin, all spirit influences are one in function. Indeed they are one, being the spirit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in and to th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and as creatures grow in appreciation of, and receptivity for, this unifying ministry of the spirit, it becomes in their experience the ministry of God the Supreme.

34:6.3 (380.4) From the heights of eternal glory the

이, 일련의 긴 과정들을 따라,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만나려고 내려왔으며 그 다음에는, 신앙의 협력 속에서 필사자 기원의 혼을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겸양의 그 과정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되돌아가기 위하여, 자비와 사명활동의 이 임무로 신성한 영이 기원적으로 출발하였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적인 혼이 안전하게 드높여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적 기세들은 그들 자신의 기원적 차원들을 반드시 찾고 달성한다. 영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주 하는 조절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지지하였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신앙 자녀들,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간다.

신성한 영은 사람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명활동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힘과 성취는 “영의 새롭게 함을 통한 그의 자비”에 달려 있다. 영적인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인 노력은 상대적인 영적 고갈을 가져온다. 전체 상승 체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생기를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

아무리 고귀한 종교적 교리라도, 죽은 이론은 인간 성격을 변환시키거나 필사자 습성을 통제할 힘이 없다. 오늘날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 옛 선생들이 외쳤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힘과 성령 안에 있다.”는 진리이다: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체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정의(正義)의 법칙들을 소생시킬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론적인 진리의 씨는 죽어있고, 가장 높은 도덕적 개념은 아무런 효력없이 존재한다.

내주 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그들은 영으로 태어났다.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주한다.” 이 영이 너희들에게 부여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필사자 불만의 소모적인 갈등을 막는 것과 영성화 되지 못한 인간 마음의 형언할 수 없는 배고픔을 막는 것은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의 현존이다. 영-동기화 된 존재들은 “목마를 때가 결코 없으니, 이는 이 영적인 물이 그들 안에서 영속하는 생명 속으로 만족함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것처럼 신성하게 물을 머금게 된 혼들은 삶의 기쁨과 세속적 실존의 만족감에서 볼 때 한결같이 물질적 환경과는 전혀 독립되어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강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질로서 부여받게 된다.

모든 각각의 필사자에는 이원적(二元的) 본성

divine Spirit descends, by a long series of steps, to meet you as you are and where you are and then, in the partnership of faith, lovingly to embrace the soul of mortal origin and to embark on the sure and certain retracement of those steps of condescension, never stopping until the evolutionary soul is safely exalted to the very heights of bliss from which the divine Spirit originally sallied forth on this mission of mercy and ministry.

34:6.4 (380.5) Spiritual forces unerringly seek and attain their own original levels. Having gone out from the Eternal, they are certain to return thereto, bringing with them all those children of time and space who have espoused the leading and teach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ose who have been truly “born of the Spirit,” the faith sons of God.

34:6.5 (380.6) The divine Spirit is the source of continual ministry and encouragement to the children of men. Your power and achievement is “according to his mercy, through the renewing of the Spirit.” Spiritual life, like physical energy, is consumed. Spiritual effort results in relative spiritual exhaustion. The whole ascendant experience is real as well as spiritual; therefore, it is truly written,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s.” “The Spirit gives life.”

34:6.6 (380.7) The dead theory of even the highest religious doctrines is powerless to transform human character or to control mortal behavior. What the world of today needs is the truth which your teacher of old declared: “Not in word only but also in power and in the Holy Spirit.” The seed of theoretical truth is dead, the highest moral concepts without effect, unless and until the divine Spirit breathes upon the forms of truth and quickens the formulas of righteousness.

34:6.7 (381.1) Those who have received and recognized the indwelling of God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It is not enough that this spirit be poured out upon you; the divine Spirit must dominate and control every phase of human experience.

34:6.8 (381.2) It is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the water of life, that prevents the consuming thirst of mortal discontent and that indescribable hunger of the unspiritualized human mind. Spirit-motivated beings “never thirst, for this spiritual water shall be in them a well of satisfaction springing up into life everlasting.” Such divinely watered souls are all but independent of material environment as regards the joys of living and the satisfactions of earthly existence. They are spiritually illuminated and refreshed, morally strengthened and endowed.

34:6.9 (381.3) In every mortal there exists a dual

이 있다: 동물적 경향의 유전과 영 자질의 높은 충동이다. 너희가 유란시아에 사는 짧은 삶 동안, 서로 반대적이고 다양한 이 두 충동들은 충만하게 화해되기가 매우 힘들며; 그것들은 거의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통합될 수 없다; 그러나 병합된 영은 너희의 삶에 두루 영의 인도에 육신이 점점 더 복종하도록 너희를 돕는 사명활동을 계속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삶을 전부 살아야 하지만, 너희가 육체와 그에 필요한 것들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이상에서 너희는 점점 더 동물적 본성을 영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너희 안에는 영적 기세들의 계획, 신성한 힘들의 어떤 동맹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배타적 목적은 물질적 속박과 유한이라는 장애로부터 너희가 최종적 해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봉사사명의 목적은 “너희가 내적(內的)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을 통하여 힘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봉사의 완전의 최종 달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그 속에서 너희가 “하느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체험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영은 결코 몰아가지 않고, 오직 인도할 뿐이다. 만약에 너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영 차원들을 달성하고 신성한 고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영원한 목표에 당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한다면, 그러면 신성한 영이 아들관계와 영적 진보의 길을 따라서 너희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기꺼이 여김, 지능적이고 유쾌한 협동의 과정이어야 한다. 영의 통치는 강압에 의해 결코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에 의해 양보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자유롭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인간 마음 안에는 신성한 접촉과 영 교제에 대한 확신이 점차적으로 개발된다; 곧 “영은 너희 영(조절자)과 함께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너희 자신의 생각 조절자가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친족 관계를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였으니 그래서 기록이 영이 너희의 영에게가 아니라 “너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삶에서 영이 다스림을 의식하는 것은 그와 같이 영으로-인도된 필사자의 삶 반응에서 영의 특징들의 증가되는 출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영의 열매들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善), 신앙, 온유함, 그리고 절제이기 때문이다.” 영으로-인도되고 신성하게 조명을 받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고통의 초라한 길을 걷고, 인간 충성심 안에서 그들의 세상 임무에서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중이지만 한편, 이미 영원한 생명의 빛들을 식별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것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해안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다; 영감을 주고 위안을 주는 진리,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nature: the inheritance of animal tendencies and the high urge of spirit endowment. During the short life you live on Urantia, these two diverse and opposing urges can seldom be fully reconciled; they can hardly be harmonized and unified; but throughout your lifetime the combined Spirit ever ministers to assist you in subjecting the flesh more and more to the leading of the Spirit. Even though you must live your material life through, even though you cannot escape the body and its necessities, nonetheless, in purpose and ideals you are empowered increasingly to subject the animal nature to the mastery of the Spirit. There truly exists within you a conspiracy of spiritual forces, a confederation of divine powers, whose exclusive purpose is to effect your final deliverance from material bondage and finite handicaps.

34:6.10 (381.4) The purpose of all this ministration is, “That you may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 And all this represents but the preliminary steps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faith and service, that experience wherein you shall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for all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sons of God.”

34:6.11 (381.5) The Spirit never *drives*, only leads. If you are a willing learner, if you want to attain spirit levels and reach divine heights, if you sincerely desire to reach the eternal goal, then the divine Spirit will gently and lovingly lead you along the pathway of sonship and spiritual progress. Every step you take must be one of willingness, intelligent and cheerful co-operation. The domination of the Spirit is never tainted with coercion nor compromised by compulsion.

34:6.12 (381.6) And when such a life of spirit guidance is freely and intelligently accepted, there gradually develops within the human mind a positive consciousness of divine contact and assurance of spirit communion; sooner or later “the Spirit bears witness with your spirit (the Adjuster) that you are a child of God.” Already has your own Thought Adjuster told you of your kinship to God so that the record testifies that the Spirit bears witness “*with* your spirit,” not to your spirit.

34:6.13 (381.7) The consciousness of the spirit domination of a human life is presently attended by an increasing exhib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 in the life reactions of such a spirit-led mortal, “for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and temperance.” Such spirit-guided and divinely illuminated mortals, while they yet tread the lowly paths of toil and in human faithfulness perform the duties of their earthly assignments, have already begun to discern the lights of eternal life as they glimmer on the faraway shores of another world; already have they begun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정의(正義)와 평화와 기쁨에 있다”는 것의 실체를 그들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이-탄생시킨 혼들은 모든 시험에 두루 그리고 온갖 고단함이 가득한 현존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바로 그러한 희망에 의해서 견디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는 신성한 영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슴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제 7 장. 영과 육신

육신, 곧 동물-기원 종족들로부터 발생된 선천적인 본성은 신성한 영의 열매들을 자연적으로 맺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물질아들들의 본성이 추가됨으로써 필사자 본성이 향상되었을 때, 아담의 증여에 의해 유란시아 종족들이 평가에서 증진되었듯이, 영의 성격 열매들의 훌륭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영이 내주 하는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길이 더 잘 준비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 영을 거부하지 않으면, 비록 영원이 그 임무의 완성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할 것이다”.

영적 진보의 정상적인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적 필사자들은 지금-현재의 유란시아 종족들의 특징인 영과 육체 사이의 심각한 모순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행성에서라도, 아담의-이전(以前)의 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차원의 실존으로부터 점점 더 지적인 의미들과 보다 높은 영적 가치들의 연속적인 차원들을 통과하여 상승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상적인 세계의 필사자들은 그들의 육체와 영적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적 차원의 실존으로부터 영적 삶의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상승은 다른 물질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이 영역에 있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격렬한 모순들과 비교할 때 교육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행성의 진보적인 영적 달성에 대한 이 임무에 있어서 도움을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변란은 세계적인 혼돈을 야기 시켰고 질서가 잡힌 사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도덕적 도움을 그 다음의 모든 세대들로부터 박탈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재난은 영적인 열망에 더욱 조화할 수도 있었던 육체적 본성을 갖는 우월한 유형의 종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아담의-불이행이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영과 육신 사이의 그러한 현저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먼 조상들이 에덴의 증여에 의해 보다 더 아담을 닮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은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to comprehend the reality of that inspiring and comforting truth,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And throughout every trial and in the presence of every hardship, spirit-born souls are sustained by that hope which transcends all fear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all hearts by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7. THE SPIRIT AND THE FLESH

34:7.1 (382.1) The flesh, the inherent nature derived from the animal-origin races, does not naturally bear th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When the mortal nature has been upstepped by the addition of the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as the Urantia races were in a measure advanced by the bestowal of Adam, then is the way better prepared for the Spirit of Truth to co-operate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to bring forth the beautiful harvest of the character fruits of the spirit. If you do not reject this spirit, even though eternity may be required to fulfill the commission,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34:7.2 (382.2) Evolutionary mortals inhabiting normal worlds of spiritual progress do not experience the acute conflicts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which characterize the present-day Urantia races. But even on the most ideal planets, pre-Adamic man must put forth positive efforts to ascend from the purely animalistic plane of existence up through successive levels of increasingly intellectual meanings and higher spiritual values.

34:7.3 (382.3) The mortals of a normal world do not experience constant warfare between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natures.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limbing up from the animal levels of existence to the higher planes of spiritual living, but this ascent is more like undergoing an educational training when compared with the intense conflicts of Urantia mortals in this realm of the divergent material and spiritual natures.

34:7.4 (382.4) The Urantia peoples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a double deprivation of help in this task of progressive planetary spiritual attainment. The Caligastia upheaval precipitated world-wide confusion and robbed all subsequent generations of the moral assistance which a well-ordered society would have provided. But even more disastrous was the Adamic default in that it deprived the races of that superior type of physical nature which would have been more consonant with spiritual aspirations.

34:7.5 (382.5) Urantia mortals are compelled to undergo such marked struggling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because their remote ancestors were not more fully Adamized by the Edenic bestowal. It was the divine plan that the mortal

영에 반응을 하는 육체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본성과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의 필사자들은 영 왕국에 그들이 들어간다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러한 분명한 투쟁을 덜 체험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적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깨우쳐진 그리고 자유를 주는 봉사 속에서, 육신의 노예-속박으로부터의 상대적인 해방을 맞본다. 예수는 인간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반역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담의-불이행으로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필사자 삶의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생의 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삶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였다.” “이것이 육신을 극복하는 그 승리, 너희의 신앙이다.”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을 아는 남자와 여자들은 가장 정상적인 세계들, 죄로 물든 적이 없고 반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들에 거주하는 자들보다 그들의 필사자 본성들과의 갈등을 더 체험하지는 않는다. 믿음의 아들들은 억제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육체적 욕망들에 의해 산출되는 갈등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인 차원들에서 활동하고 영적인 단계에서 생활한다. 동물적 존재들의 정상적인 충동들과 자연적인 욕망들 그리고 육체적 본성의 자극들은, 무식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양심적인 개인들의 마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영적 달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영존하는 일생의 길을 이제 출발하였고, 임무배정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전진하라는 너희의 계층들을 수여받았으니, 인간의 망각의 위험과 필사자의 번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 것 같은 의심이나 당혹하게 하는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지위와 처지에 비틀거리지도 말고 의문도 갖지 말라, 이는 어두운 모든 시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모든 교차로에서, 진리의 영이 항상 “이것이 그 길이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의 봉사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races of Urantia should have had physical natures more naturally spirit responsive.

34:7.6 (382.6) Notwithstanding this double disaster to man's nature and his environment, present-day mortals would experience less of this apparent warfare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if they would enter the spirit kingdom, wherein the faith sons of God enjoy comparative deliverance from the slave-bondage of the flesh in the enlightened and liberating service of wholehearted devotion to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Jesus showed mankind the new way of mortal living whereby human beings may very largely escape the dire consequences of the Caligastic rebellion and most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deprivations resulting from the Adamic default. “The spirit of the life of Christ Jesus has made us free from the law of animal living and the temptations of evil and sin.”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flesh, even your faith.”

34:7.7 (383.1) Those God-knowing men and women who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experience no more conflict with their mortal natures than do the inhabitants of the most normal of worlds, planets which have never been tainted with sin nor touched by rebellion. Faith sons work on intellectual levels and live on spiritual planes far above the conflicts produced by unrestrained or unnatural physical desires. The normal urges of animal beings and the natural appetites and impulses of the physical nature are not in conflict with even the highest spiritual attainment except in the minds of ignorant, mistaught, or unfortunately overconscientious persons.

34:7.8 (383.2) Having started out on the way of life everlasting, having accepted the assignment and received your orders to advance, do not fear the dangers of human forgetfulness and mortal inconstancy, do not be troubled with doubts of failure or by perplexing confusion, do not falter and question your status and standing, for in every dark hour, at every crossroad in the forward struggle, the Spirit of Truth will always speak, saying, “This is the way.”

34:7.9 (383.3)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ssigned to service on Urantia.]

제 35 편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

⇨ 034

유랜시아 책

036 ⇨

부 II. 지역우주

제 35 편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

섹션

소개

- 제 1 장. 아버지 멜기세덱
- 제 2 장. 멜기세덱 아들
- 제 3 장. 멜기세덱 세계
- 제 4 장. 멜기세덱들의 특별 업무
- 제 5 장. 보론다덱 아들
- 제 6 장. 별자리 아버지
- 제 7 장. 보론다덱 세계
- 제 8 장. 라노난덱 아들
- 제 9 장. 라노난덱 통치자
- 제 10 장. 라노난덱 세계

소개

앞에서 소개된 하느님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되었다. 그들은 우주적 영역들에 대한 신성한 통치자들의 자녀들이다. 아들관계를 갖는 최초 파라다이스 계층에는, 창조자 아들들, 네바돈에는 우주의 아버지며 주권자인 오직 하나의 미가엘만이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관계의 두 번째 계층에는 아보날 또는 치안법관 아들들이 있는데, 네바돈에는 배정된 숫자—1,062명—가 모두 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작은 그리스도들”은 창조자 및 주(主)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성중여에 있어서 효력이 있고 만능이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세 번째 계층은 지역우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내가 추정하기로는 네바돈에 기록된 9,642명의 창조체-삼위일체화 보좌관들을 제외하고 15,000명 내지 20,000명의 삼위일체 교사(敎師) 아들들이 있다. 이 파라다이스 데이날들은 치안법관들도 아니고 관리행정자들도 아니며; 초(超)선생들이다.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아들들의 유형들은 지역우주에서 기원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상호 보완

PAPER 35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Father Melchizedek
- 2. The Melchizedek Sons
- 3. The Melchizedek Worlds
- 4. Special Work of the Melchizedeks
- 5. The Vorondadek Sons
- 6. The Constellation Fathers
- 7. The Vorondadek Worlds
- 8. The Lanonandek Sons
- 9. The Lanonandek Rulers
- 10. The Lanonandek Worlds

INTRODUCTION

35:0.1 (384.1) THE Sons of God previously introduced have had a Paradise origin. They are the offspring of the divine Rulers of the universal domains. Of the first Paradise order of sonship, the Creator Sons, there is in Nebadon only one, Michael, the universe father and sovereign. Of the second order of Paradise sonship, the Avonal or Magisterial Sons, Nebadon has its full quota — 1,062. And these “lesser Christs” are just as effective and all-powerful in their planetary bestowals as was the Creator and Master Son on Urantia. The third order, being of Trinity origin, do not register in a local universe, but I estimate there are in Nebadon between fifteen and twenty thousand Trinity Teacher Sons exclusive of 9,642 creature-trinitized assistants of record. These Paradise Daynals are neither magistrates nor administrators; they are superteachers.

35:0.2 (384.2) The types of Sons about to be considered are of local universe origin; they are

적인 우주 어머니 영과의 다양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의 자녀들이다. 다음의 지역우주 아들관계 계층들이 이 글에서 언급될 것이다:

1. 멜기세덱 아들.
2. 보론다덱 아들.
3. 라노난덱 아들.
4. 생명운반자 아들.

삼원적 파라다이스 신(神)은 아들관계 세 계층, 미가엘, 아보날 그리고 데이날의 창조를 위해 기능 한다: 지역우주에서의 이중적 신(神)인 아들과 영 역시 세 가지 높은 계층, 멜기세덱, 보론다덱 그리고 라노난덱의 창조에서 기능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표현을 성취하고 나서, 그들은 다재다능한 계층의 생명운반자들을 산출하는 일에 칠중 하느님의 다음 차원과 협동한다. 이 존재들은 하강(下降)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분류되지만, 그들은 독특하고도 기원적 형태의 우주 생명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다음 글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제 1 장. 아버지 멜기세덱

새벽별 그리고 다른 행정-관리적 개인성들과 같은 개인적 도움의 존재들이 실존하게 된 이후에, 주어진 우주의 신성한 목적과 창조 계획들에 따라서,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 곧 지역우주 무한한 영의 딸 사이의 창조적 연합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된다. 이 창조적 동반자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성 자손은 기원적 멜기세덱—아버지 멜기세덱—이며, 그는 이어서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과 협력하여 그 이름을 가진 집단 전체를 실존하게 만드는 독특한 존재이다.

네바돈 우주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빛나는 새벽별의 첫번째 집행자 연관-동료로 활동한다. 가브리엘은 우주 정책들에 더 많이 관여하고, 멜기세덱은 실천적인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 가브리엘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네바돈 법정과 협의회를 주재하고,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긴급한 위원회와 자문 기관들을 주재한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은 구원자별에서 동시에 같이 떠나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집행자 우두머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우주의 멜기세덱들은 아버지 멜기세덱과 연락하여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표준 시간으로 1,000년의 기간 안에 모두 창조되었다. 그들 자신의 구성원들의 하나가 조화-협동 창조자로 기능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으로서, 멜기세덱들

the offspring of a Paradise Creator Son in varied association with the complement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following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35:0.3 (384.3) 1. Melchizedek Sons.

35:0.4 (384.4) 2. Vorondadek Sons.

35:0.5 (384.5) 3. Lanonandek Sons.

35:0.6 (384.6) 4. Life Carrier Sons.

35:0.7 (384.7) Triune Paradise Deity functions for the creation of three orders of sonship: the Michaels, the Avonals, and the Daynals. Dual Deity in the local universe, the Son and the Spirit, also functions in the creation of three high orders of Sons: the Melchizedeks, the Vorondadeks, and the Lanonandeks; and having achieved this threefold expression, they collaborate with the next level of God the Sevenfold in the production of the versatile order of Life Carriers. These beings are classified with the descending Sons of God, but they are a unique and original form of universe life. Their consideration will occupy the whole of the next paper.

1. THE FATHER MELCHIZEDEK

35:1.1 (384.4) After bringing into existence the beings of personal aid, such as the Bright and Morning Star and other administrative persona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divine purpose and creative plans of a given universe, there occurs a new form of creative union between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he local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The personality offspring resulting from this creative partnership is the original Melchizedek — the Father Melchizedek — that unique being who subsequently collaborates with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o bring into existence the entire group of that name.

35:1.2 (385.1)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Father Melchizedek acts as the first executive associate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Gabriel is occupied more with universe policies, Melchizedek with practical procedures. Gabriel presides over the regularly constituted tribunals and councils of Nebadon, Melchizedek over the special, extraordinary, and emergency commissions and advisory bodies.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are never away from Salvington at the same time, for in Gabriel's absence the Father Melchizedek functions as the chief executive of Nebadon.

35:1.3 (385.2) The Melchizedeks of our universe were all created within one millennial period of standard time by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in liaison with the Father Melchizedek. Being an order of sonship wherein one of their own number

은 부분적으로 자아-기원으로 구성되며 그에 따라서 자치-관리의 드높은 형태의 실현을 위한 후보자들이다. 기원적 멜기세덱이 특정한 고유의 공동-부모적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은 표준시간으로 7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들 자신의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로 주기적으로 선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아-규율하는 계층으로 기능한다. 이 아버지 멜기세덱은 자기 계층의 특정한 개별존재들을,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계시된 적이 없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 형태인 아(亞)중간 세계에서 특별한 생명운반자들로 기능하도록 임명한다.

멜기세덱들은 초우주의 법정들에 계류된 존재들에 증인으로 불리어지는 경우와, 때때로 그들이 그러하듯이, 같은 초우주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에게 대변하는 특별한 대사(大使)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우주 밖에서 광범위하게 기능하지 않는다. 각 우주의 기원적 또는 최초-탄생 멜기세덱은 이웃 우주로 또는 그의 계층의 관심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들로서 파라다이스로의 여행에 늘 해방되어 있다.

제 2 장. 멜기세덱 아들들

멜기세덱들은 육신화의 필요가 없이, 필사자의 향상의 사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능하고 진화적 종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낮은 창조 생명에 충분히 접근하기 위한 신성한 아들들의 첫 번째 계층이다. 이들 아들들은 본래 위대한 개인성 하강의 중간지점에 있으며, 그 기원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성(神性)과 의지 자질의 가장 낮은 창조 생명의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높고 신성한 살아있는 실존 차원들과, 더 낮은 심지어 물질적인, 진화 세계들의 생명 형태들 차원 사이의, 자연적인 중간 매개자들이 된다. 세라핌천사 계층들, 천사들은 멜기세덱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 사실, 모든 형태의 지능 생명들은 이 아들들에서 이해심이 많은 친구들과 동정심 많은 선생들 그리고 현명한 조언자들을 발견한다.

멜기세덱들은 자치-관리하는 계층이다. 독특한 이 집단과 함께 우리는 지역우주 존재들의 자아-결정에 대한 처음 시도를 발견하게 되며, 참된 자치-정부의 가장 높은 형태를 보게 된다.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본부-행성 관리-행정을 위한 자체 장치뿐만 아니라 6개의 연관 구체들 및 그들의 보조 세계들에 대한 장치도 역시 조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결코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여야만 한다. 오르본톤 초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이 멜기세덱 아들들이 한 번도 그들의 신뢰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치를 열망하는 모든 우주 집단의 희망이다; 네바돈의 모든 구체들에게 자치-정부에 대한 원형들이며 교사들이다. 위로부터 우월한 존재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종속적 존재들까지, 지능 존재들의 모든

functioned as co-ordinate creator, Melchizedeks are in constitution partly of self-origin and therefore candidates for the realization of a supernal type of self-government. They periodically elect their own administrative chief for a term of seven years of standard time and otherwise function as a self-regulating order, though the original Melchizedek does exercise certain inherent coparental prerogatives. From time to time this Father Melchizedek designates certain individuals of his order to function as special Life Carriers to the midsonite worlds, a type of inhabited planet not heretofore revealed on Urantia.

35:1.4 (385.3) The Melchizedeks do not function extensively outside the local universe except when they are called as witnesses in matters pending before the tribunals of the superuniverse, and when designated special ambassadors, as they sometimes are, representing one universe to another in the same superuniverse. The original or first-born Melchizedek of each universe is always at liberty to journey to the neighboring universes or to Paradise on missions having to do with the interests and duties of his order.

2. THE MELCHIZEDEK SONS

35:2.1 (385.4) The Melchizedeks are the first order of divine Sons to approach sufficiently near the lower creature life to be able to function directly in the ministry of mortal uplift, to serve the evolutionary races without the necessity of incarnation. These Sons are naturally at the mid-point of the great personality descent, by origin being just about midway between the highest Divinity and the lowest creature life of will endowment. They thus become the natural intermediaries between the higher and divine levels of living existence and the lower, even the material, forms of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 seraphic orders, the angels, delight to work with the Melchizedeks; in fact, all forms of intelligent life find in these Sons understanding friends, sympathetic teachers, and wise counselors.

35:2.2 (385.5) The Melchizedeks are a self-governing order. With this unique group we encounter the first attempt at self-determination on the part of local universe beings and observe the highest type of true self-government. These Sons organize their own machinery for their group and home-planet administration, as well as that for the six associated spheres and their tributary worlds. And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y have never abused their prerogatives; not once throughout all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have these Melchizedek Sons ever betrayed their trust. They are the hope of every universe group which aspires to self-government; they are the pattern and the teachers of self-government to all the

계층들은 멜기세덱들의 정부에 대해 전심으로 찬양한다.

아들관계의 멜기세덱 계층은 거대한 가족에서 가장 연장자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책임을 진다.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이지만, 그 대부분은 자발적이고 모두가 자아-부과해서 하는 것이다. 때때로 구원자별에 소집되는 특별한 집회들 대부분은 멜기세덱들의 동의로 소집된다. 그들 자신의 발의(發議)로, 이 아들들은 그들이 출생한 우주를 순시한다. 그들은 우주 지능에 헌신하는 자율적 조직을 유지하며, 영역의 일상적인 관리-행정에 관계하는 정규 대리자들을 통하여 우주 본부에 이르는 모든 정보에 상관없이 창조자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공평한 관찰자들이다; 그들은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들에게서 충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

멜기세덱들은 영역들의 이동하는 자문 계심법원으로 기능 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자문 위원회로 봉사하기 위하여, 조서를 꾸미기 위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조언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작은 집단을 이루어 세계들로 가며, 그렇게 해서 진화적인 권역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때때로 발생하는 심각한 차이들을 해결하고 주요 문제점들을 안정시키는 일을 돕는다.

이들 우주의 맏아들들은 창조자 아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서 빛나는 새벽별의 우두머리 도우마들이다. 멜기세덱이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먼 세계에 갈 때, 그는 특별한 그 임무의 목적들을 위하여 보내는 이의 이름으로 대리할 수 있으며 그 사건 안에서 빛나는 새벽별의 충만한 권한을 가지고, 예정된 행성에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더 높은 아들이 영역의 창조체들의 모습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구체들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창조자 아들이 진화 세계에 증여의 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혼자서 간다; 그러나 그의 파라다이스 형제들 중의 하나인 아보날 아들이 증여를 시작할 때에는, 증여 임무의 성취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12명의 멜기세덱 후원자들과 동행한다. 또한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향한 치안법관 임무들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을 도우며, 이러한 임무들에서 아보날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필사자의 눈에 현시된다면 멜기세덱들 역시 필사자들의 눈에 보인다.

그들이 사명활동하지 않아도 될만큼 그러한 영역 필요성이 없는 행성의 위상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대한 최종적이고도 충만한 인식에 이르도록 진보

spheres of Nebadon. All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superiors from above and subordinates from below, are wholehearted in their praise of the government of the Melchizedeks.

35:2.3 (386.1) The Melchizedek order of sonship occupies the position, and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st son in a large family. Most of their work is regular and somewhat routine, but much of it is voluntary and altogether self-imposed. A majority of the special assemblies which, from time to time, convene on Salvington are called on motion of the Melchizedeks. On their own initiative these Sons patrol their native universe. They maintain an autonomous organization devoted to universe intelligence, making periodical reports to the Creator Son independent of all information coming up to universe headquarters through the regular agencies concerned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realm. They are by nature unprejudiced observers; they have the full confidence of all classes of intelligent beings.

35:2.4 (386.2) The Melchizedeks function as mobile and advisory review courts of the realms; these universe Sons go in small groups to the worlds to serve as advisory commissions, to take depositions, to receive suggestions, and to act as counselors, thus helping to compose the major difficulties and settle the serious differences which arise from time to time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domains.

35:2.5 (386.3) These eldest Sons of a universe are the chief aid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n carrying out the mandates of the Creator Son. When a Melchizedek goes to a remote world in the name of Gabriel, he may, for the purposes of that particular mission, be deputized in the name of the sender and in that event will appear on the planet of assignment with the full authority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Especially is this true on those spheres where a higher Son has not yet appeared in the likeness of the creatures of the realm.

35:2.6 (386.4) When a Creator Son enters upon the bestowal career on an evolutionary world, he goes alone; but when one of his Paradise brothers, an Avonal Son, enters upon a bestowal, he is accompanied by the Melchizedek supporters, twelve in number, who so efficiently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bestowal mission. They also support the Paradise Avonals on magisterial missions to the inhabited worlds, and in these assignments the Melchizedeks are visible to mortal eyes if the Avonal Son is also thus manifest.

35:2.7 (386.5) There is no phase of planetary spiritual need to which they do not minister. They are the teachers who so often win whole worlds of advanced life to the final and full recognition of the

된 생명의 전체 세계들을 매우 자주 인도하는 선생들이다.

멜기세덱들은 지혜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전혀 실패가 없지 않다. 행성 임무들에 홀로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때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의 감독자들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판단 실수는 그가 구원자별에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멜기세덱의 자격을 잃게 하며, 창조자 아들을 알현하면서, 그의 동료들과 불일치하도록 만든 부조화를 그에게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교육을 받아들이나, 그렇게 되면 교정을 위한 휴식이 있는 다음, 세 번째 날이 지나간 후 봉사에 복귀된다. 그러나 멜기세덱 기능에서 이러한 사소한 부적응들은 네바돈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이들 아들들은 숫자가 증가하는 계층이 아니며; 각 지역우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본부에 기록된 멜기세덱들의 숫자는 1,000만 명보다 많다.

제 3 장. 멜기세덱 세계

멜기세덱들은 우주 본부인 구원자별 근처에 자기 고유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이 구체는, 70개의 1차 구체들로, 각각은 특별한 활동에 배정된 여섯 개의 보조 구체들로 둘러싸여, 이루어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선도(先導)세계이다. 기묘한 이 구체들—1차 70개와 보조 420개—은 때로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불린다. 네바돈의 모든 별자리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구원자별에서 거주 지위를 취득하면서 모든 490개 세계들에서의 훈련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상승자들의 교육은 고안건축 구체의 구원자별 군(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오직 한 위상에 해당된다.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490개 구체들은 10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보조 구체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들 각각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들 중 어느 하나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순환회로를 도는 행성 행렬에서 선도(先導)세계와 그 다음의 여섯 개의 1차 구체들을 포함하는 첫 번째 집단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 멜기세덱 세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선도(先導)세계—멜기세덱 아들의 본부 세계.
2. 물리적-생명 학교들과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이 있는 세계.
3. 모론시아 생명의 세계.
4. 최초 영 생명의 구체.

Creator Son and his Paradise Father.

35:2.8 (386.6) The Melchizedeks are well-nigh perfect in wisdom, but they are not infallible in judgment. When detached and alone on planetary missions, they have sometimes erred in minor matters, that is, they have elected to do certain things which their supervisors did not subsequently approve. Such an error of judgment temporarily disqualifies a Melchizedek until he goes to Salvington and, in audience with the Creator Son, receives that instruction which effectually purges him of the disharmony which caused disagreement with his fellows; and then, following the correctional rest, reinstatement to service ensues on the third day. But these minor misadaptations in Melchizedek function have rarely occurred in Nebadon.

35:2.9 (387.1) These Sons are not an increasing order; their number is stationary, although varying in each local universe. The number of Melchizedeks of record on their headquarters planet in Nebadon is upward of ten million.

3. THE MELCHIZEDEK WORLDS

35:3.1 (387.2) The Melchizedeks occupy a world of their own near Salvington, the universe headquarters. This sphere, by name Melchizedek, is the pilot world of the Salvington circuit of seventy primary spheres, each of which is encircled by six tributary spheres devoted to specialized activities. These marvelous spheres — seventy primaries and 420 tributaries — are often spoken of as the Melchizedek University. Ascending mortals from all the constellations of Nebadon pass through training on all 490 worlds in the acquirement of residential status on Salvington. But the education of ascenders is only one phase of the manifold activities taking place on the Salvington cluster of architectural spheres.

35:3.2 (387.3) The 490 spheres of the Salvington circuit are divided into ten groups, each containing seven primary and forty-two tributary spheres. Each of these groups i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some one of the major orders of universe life. The first group, embracing the pilot world and the next six primary spheres in the encircling planetary procession,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se Melchizedek worlds are:

- 35:3.3 (387.4) 1. The pilot world — the home world of the Melchizedek Sons.
- 35:3.4 (387.5) 2. The world of the physical-life schools and the laboratories of living energies.
- 35:3.5 (387.6) 3. The world of morontia life.
- 35:3.6 (387.7) 4. The sphere of initial spirit life.

5. 중간-영 생명의 세계.

6. 진보하는 영 생명의 구체.

7. 조화-협동의 그리고 최극의 자아-실현의 권역.

이 멜기세덱 구체들의 여섯 보조적 세계들은 연관된 1차 구체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들에 헌신한다.

멜기세덱 구체인 선도(先導)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고 영성화 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들의 일반적인 회합 장소이다. 상승자에게 이 세계는 네바돈 전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그들의 별자리 훈련을 마친 모든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구원자별 교육 체계의 단련과 영 진보의 체제에 가입된다. 그리고 너희가 파라다이스 목적지에 도착된 후에도 너희는 독특한 이 세계에서의 삶의 첫 날에 대한 너희의 반응을 잊지 못할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의 순환 회로를 도는 여섯 행성들에서의 그들의 훈련을 따라가는 동안 멜기세덱 세계에서 거처를 잡는다. 그리고 동일한 이 방법은 70개의 문화세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1차 구체들에서 그들이 머무는 전체 기간에 두루 적용된다.

멜기세덱 구체의 여섯 보조 세계들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시간을 많은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지겠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관해서, 이 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구단계에 헌신한다:

1. 1번 구체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최초 행성 생활을 복습하는 일에 사용된다. 이 작업은 필사자 기원의 주어진 세계로부터 온 자들로 구성된 학급들에서 수행된다. 유란시아에서 온 자들은 그러한 체험적 복습을 같이 하게 된다.

2. 2번 구체의 특별한 작업은 지역 체계 본부의 첫째 위성을 도는 맨션세계들을 통과해 온 체험에 대한 비슷한 복습으로 구성된다.

3. 이 구체의 복습은 지역체계의 수도(首都)에 머물렀던 것과 관계되며 체계 본부 군(群)의 고안건축 세계들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포용한다.

4. 4번째 구체는 별자리의 70개 보조 세계들과 그들과 연관된 구체들의 체험들을 복습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35:3.7 (387.8) 5. The world of mid-spirit life.

35:3.8 (387.9) 6. The sphere of advancing spirit life.

35:3.9 (387.10) 7. The domain of co-ordinate and supreme self-realization.

35:3.10 (387.11) The six tributary worlds of each of these Melchizedek spheres are devoted to activities germane to the work of the associated primary sphere.

35:3.11 (387.12) The pilot world, the sphere *Melchizedek*, is the common meeting ground for all beings who are engaged in educating and spiritualizing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nd space. To an ascender this world is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place in all Nebadon. All evolutionary mortals who graduate from their constellation training are destined to land on Melchizedek, where they are initiated into the regime of the disciplines and spirit progression of the Salvington educational system. And never will you forget your reactions to the first day of life on this unique world, not even after you have reached your Paradise destination.

35:3.12 (387.13) Ascending mortals maintain residence on the Melchizedek world while pursuing their training on the six encircling planets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this same method is adhered to throughout their sojourn on the seventy cultural worlds, the primary spheres of the Salvington circuit.

35:3.13 (387.14) Many diverse activities occupy the time of the numerous beings who reside on the six tributary worlds of the Melchizedek sphere, but as concerns the ascending mortals, these satellites are devoted to the following special phases of study:

35:3.14 (388.1) 1. Sphere number one is occupied with the review of the initial planetary life of the ascending mortals. This work is carried on in classes composed of those who hail from a given world of mortal origin. Those from Urantia pursue such an experiential review together.

35:3.15 (388.2) 2. The special work of sphere number two consists in a similar review of the experiences passed through on the mansion worlds encircling the premier satellite of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35:3.16 (388.3) 3. The reviews of this sphere pertain to the sojourn on the capital of the local system and embrace the activities of the remainder of the architectural worlds of the system headquarters cluster.

35:3.17 (388.4) 4. The fourth sphere is occupied with a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seventy tributary worlds of the constellation and of their associated spheres.

5. 5번째 구체에서는 별자리 본부 세계에 머물던 상승자들에 대한 복습이 수행되어진다.

6. 6번 구체에서의 시간은 이 다섯 신(新)시대들을 상관관계 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에 사용되며 그리하여 우주 훈련의 멜기세덱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체험의 조화-협동이 이루어진다.

우주 관리-행정과 영적 지혜의 학교들은 멜기세덱 고향 세계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는 에너지, 물질, 조직, 통신, 기록, 윤리, 그리고 상대적인 창조체 체험 등과 같은 연구의 단일 계통에 헌신하는 학교들도 발견된다.

영적 수여자질의 멜기세덱 대학에서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모든 계층들—파라다이스 계층들조차도—은, 우주의 먼 세계들까지에도 영적인 해방과 신성한 아들관계를 외치면서 운명의 전도자들로서 나아가는 무리들을 훈련하는 일에 멜기세덱 그리고 세라핌천사 선생들과 협동한다. 멜기세덱 대학의 이 특수학교는 전문적인 우주 연구기관이다; 학생 방문자들은 다른 영역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최고 과정의 훈련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그들의 본거지 세계에서 주어진다. 이 최고 윤리 대학은 기원적인 아버지 멜기세덱에 의해 운영된다. 다양한 우주들이 보내는 교환 학생들이 이 학교들로 온다. 네바돈의 어린 우주는 영적 성취와 높은 윤리적 발전의 면에서 볼 때 우주들의 크기에서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행정적 문제들은 다른 가까운 창조들을 위하여 전 우주를 커다란 상담소로 바꾸었으므로, 멜기세덱 대학들이 다른 영역들로부터의 학생 방문자들과 관찰자들이 모여든다. 지역적 등록자들의 거대한 집단들 이외에도, 멜기세덱 학교들에 참여하는 외래(外來) 학생들은 100,000명을 항상 넘는데, 왜냐하면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들의 계층이 스프랜돈 전체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멜기세덱들의 특별 업무

멜기세덱 활동들 중에서 고도로 특수화된 분야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진보적인 모론시아 생애의 감독과 관계가 있다. 이 훈련 대부분은 인내심이 있고 현명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우주 달성의 비교적 높은 차원을 달성한 필사자들의 보조를 받지만, 이러한 모든 교육적 업무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관계적-연합으로 멜기세덱들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35:3.18 (388.5) 5. On the fifth sphere there is conducted the review of the ascendant sojourn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

35:3.19 (388.6) 6. The time on sphere number six is devoted to an attempt to correlate these five epochs and thus achieve co-ordination of experience preparatory to entering the Melchizedek primary schools of universe training.

35:3.20 (388.7) The school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spiritual wisdom are located on the Melchizedek home world, where also are to be found those schools devoted to a single line of research, such as energy, matter, organization, communication, records, ethics, and comparative creature existence.

35:3.21 (388.8) In the Melchizedek College of Spiritual Endowment all orders — even the Paradise orders — of the Sons of God co-operate with the Melchizedek and the seraphic teachers in training the hosts who go forth as evangelists of destiny, proclaiming spiritual liberty and divine sonship even to the remote worlds of the universe. This particular school of the Melchizedek University is an exclusive universe institution; student visitors are not received from other realms.

35:3.22 (388.9) The highest course of training in universe administration is given by the Melchizedeks on their home world. This College of High Ethics is presided over by the original Father Melchizedek. It is to these schools that the various universes send exchange students. While the young universe of Nebadon stands low in the scale of universes as regards spiritual achievement and high ethical development, nevertheless, our administrative troubles have so turned the whole universe into a vast clinic for other near-by creations that the Melchizedek colleges are thronged with student visitors and observers from other realms. Besides the immense group of local registrants there are always upward of one hundred thousand foreign students in attendance upon the Melchizedek schools, for the order of Melchizedeks in Nebadon is renowned throughout all Splandon.

4. SPECIAL WORK OF THE MELCHIZEDEKS

35:4.1 (388.10) A highly specialized branch of Melchizedek activities has to do with the supervision of the progressive morontia career of the ascending mortals. Much of this training is conducted by the patient and wise seraphic ministers, assisted by mortals who have ascended to relatively higher levels of universe attainment, but all of this educational work i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in association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멜기세덱 계층들이 광대한 교육 체계와 지역 우주의 체계적 훈련 체제에 주로 헌신하는 한편, 그들은 또한 색다른 환경들에서 그리고 독특한 업무에서 기능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약 1,000만 개의 거주세계들을 포함하는 진화하는 우주에서, 평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멜기세덱들이 기능한다. 너희의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그들은 비상사태 아들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행성에서, 체계에서, 별자리에서, 또는 우주에서, 모든 위급한 상황들—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멜기세덱 아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창조자 아들이 가진 계획의 어떤 면이 실패할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멜기세덱이 즉시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죄 많은 반란의 현존 안에서, 기능하려고 그들이 소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의지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들에서 어떤 본성이든지 모든 응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멜기세덱들이 활동한다. 그들은 때로 불안정한 행성들에서 일시적인 보호관리자로 활동하는데, 불이행 행성 정부의 접수자로 봉사한다. 행성위기가 있을 때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독특한 여러 능력들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한 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일은 쉽게 가능하며, 어떤 때에는 이 계층의 하나가 필사자의 육신을 닮은 모습으로 육신화 되기도 하였다. 네바돈에서는 일곱 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이 진화 세계에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활동하였으며, 수많은 경우들에서 이 아들들이 우주 창조체들의 다른 계층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들은 모든 계층들의 우주 지능체에 그리고 모든 세계들과 세계들의 체계들에게 융통성이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비상조치 사명활동자들인 것이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유란시아에서 살았던 멜기세덱은 그 부근에서 살렘의 영주로 알려졌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렘이라 불리는 장소에 거주하는 진리 탐구자들의 작은 거류민단을 통솔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되었으며 점증하는 영적 무지(無智) 시대 동안 생명의 빛이 꺼지게 될 것을 염려한 행성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대의 진리를 육성하였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전수하였다.

제 5 장. 보론다덱 아들

다재다능한 멜기세덱들의 개인적 도움자들과 첫 번째 집단의 창조 이후에, 창조자 아들과 지

35:4.2 (389.1) While the Melchizedek orders are chiefly devoted to the vast educational system and experiential training regime of the local universe, they also function in unique assignments and in unusual circumstances. In an evolving universe eventually embracing approximately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many things out of the ordinary are destined to happen, and it is in such emergencies that the Melchizedeks act. On Edentia,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they are known as emergency Sons. They are always ready to serve in all exigencies — physical, intellectual, or spiritual — whether on a planet, in a system, in a constellation, or in the universe. Whenever and wherever special help is needed, there you will find one or more of the Melchizedek Sons.

35:4.3 (389.2) When failure of some feature of the Creator Son's plan is threatened, forthwith will go a Melchizedek to render assistance. But not often are they summoned to function in the presence of sinful rebellion, such as occurred in Satania.

35:4.4 (389.3) The Melchizedeks are the first to act in all emergencies of whatever nature on all worlds where will creatures dwell. They sometimes act as temporary custodians on wayward planets, serving as receivers of a defaulting planetary government. In a planetary crisis these Melchizedek Sons serve in many unique capacities. It is easily possible for such a Son to make himself visible to mortal beings, and sometimes one of this order has eve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even times in Nebadon has a Melchizedek served on an evolutionary world in the similitude of mortal flesh, and on numerous occasions these Sons have appeared in the likeness of other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They are indeed the versatile and volunteer emergency ministers to all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and to all the worlds and systems of worlds.

35:4.5 (389.4) The Melchizedek who lived on Urantia during the time of Abraham was locally known as Prince of Salem because he presided over a small colony of truth seekers residing at a place called Salem. He volunteered to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did so with the appro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the planet, who feared that the light of life would become extinguished during that period of increasing spiritual darkness. And he did foster the truth of his day and safely pass it on to Abraham and his associates.

5. THE VORONDADEK SONS

35:5.1 (389.5) After the creation of the personal aids and the first group of the versatile Melchizedeks,

역우주 창조 영은 두 번째의 위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우주 아들관계인 보론다텍들을 계획하고 실존하게 하였다. 그들은 별자리 아버지들로서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계층에 속한 아들이 모든 지역우주에서 각각의 별자리 정부 우두머리에 균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보론다텍들의 숫자는 각 지역우주마다 틀리는데, 네바돈에서는 100만 명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아들들은, 그들의 조화-협동 존재들, 멜기세덱들과 마찬가지로 번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아들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치단체이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그들은 멜기세덱과 거의 마찬가지로 대개 자아-결정적이지만, 보론다텍들은 그러한 광범위한 활동에 두루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화려한 융통성에 있어서는 그들의 형제 멜기세덱과 같지 않지만, 통치자로서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관리자로서는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종속들인 라노난덱 체계 주권자들의 전반적인 행정-관리적 동료들은 아니지만, 목적의 안정성에 있어서 그리고 심판의 신성(神性)에 있어서는 우주 아들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들을 능가한다.

이 아들들의 계층의 결정과 통치가 신성한 아들관계의 영과 항상 일치하고 창조자 아들의 정책들과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수 때문에 창조자 아들에게 소환되었으며, 상세한 기법적 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결정들은 때로 우주의 상급 법정들에게 상소(上訴)되어 번복되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그들은 결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바돈의 전체 역사상 보론다텍이 우주(宇宙) 정부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우주들에서 보론다텍들의 봉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우주들에게 대사(大使)들로 활동하며 자신들이 태어난 우주 안에서는 별자리들을 대표하는 영사(領事)들로 활동한다.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모든 계층들 중에서 그들은 위험한 우주 상황들에서 행사될 주권 힘의 충분한 대표단을 매우 자주 위탁받는다.

영적인 암흑 속에 분리된 세계들, 반역과 불이행을 통하여 행성 고립을 당하는 구체들에서, 정상적인 지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찰자 보론다텍이 통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이 지고자 관찰자는 행성에 배정된 모든 천상(天上)의 존재를 다스릴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론다텍들이 그러한 행성들의 지고자 대리통치자로서 그러한 권한을 때때로 행사한다는 것이 구원자별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역에 물들지 않은 거주세계들에서도 역시 사실된다.

the Creator Son and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planned for, and brought into existence, the second great and diverse order of universe sonship, the Vorondadeks. They are more generally known as Constellation Fathers because a Son of this order is uniformly found at the head of each constellation government in every local universe.

35:5.2 (389.6) The number of Vorondadeks varies in each local universe, just one million being the recorded number in Nebadon. These Sons, like their co-ordinates, the Melchizedeks, possess no power of reproduction. There exists no known method whereby they can increase their numbers.

35:5.3 (389.7) In many respects these Sons are a self-governing body; as individuals and as groups, even as a whole, they are largely self-determinative, much as are the Melchizedeks, but Vorondadeks do not function through such a wide range of activities. They do not equal their Melchizedek brethren in brilliant versatility, but they are even more reliable and efficient as rulers and farseeing administrators. Neither are they quite the administrative peers of their subordinates, the Lanonandek System Sovereigns, but they excel all orders of universe sonship in stability of purpose and in divinity of judgment.

35:5.4 (390.1) Although the decisions and rulings of this order of Sons are alway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divine sonship and in harmony with the policies of the Creator Son, they have been cited for error to the Creator Son, and in details of technique their decisions have sometimes been reversed on appeal to the superior tribunals of the universe. But these Sons rarely fall into error, and they have never gone into rebellion; never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has a Vorondadek been found in contempt of the universe government.

35:5.5 (390.2) The service of the Vorondadeks in the local universes is extensive and varied. They serve as ambassadors to other universes and as consuls representing constellations within their native universe. Of all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they are the most often intrusted with the full delegation of sovereign powers to be exercised in critical universe situations.

35:5.6 (390.3) On those worlds segregated in spiritual darkness, those spheres which have, through rebellion and default, suffered planetary isolation, an observer Vorondadek is usually present pending the restoration of normal status. In certain emergencies this Most High observer could exercise absolute and arbitrary authority over every celestial being assigned to that planet. It is of record on Salvington that the Vorondadeks have sometimes exercised such authority as Most High regents of such planets. And this has also been true even of inhabited worlds that were untouched by rebellion.

12명 또는 그 이상의 보론다텍 아들들의 한 무리가, 행성 또는 체계의 지위를 포함하는 특별한 사건들에 관여하는 제심과 상고 고등법정의 관사석에 앉는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는 별자리 정부들에게 토착적인 입법 기능들과 훨씬 더 많이 관계된다. 이 모든 봉사들의 결과로, 보론다텍 아들들은 지역우주들의 역사가들이 되었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 갈등들과 거주세계들의 사회적 격변에 개별적으로 익숙하다.

제 6 장. 별자리 아버지

지역우주에 속한 100개 별자리들 각각의 지배자 신분으로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텍들이 배정된다. 이 아들들은 창조자 아들에 의해 선택되며 일 만년—표준시간으로 10,000년,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50,000년—동안의 봉사를 감당하도록 가브리엘에 의해 별자리들의 지고자들로 임명된다. 통치하는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두 명의 연관-동료를 갖는다. 관리-행정이 바뀔 때마다 상급자가 그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임무를 이어받으며, 한편 배정받지 않은 구원자별 세계들에 거주하는 보론다텍들은 하급자 동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될 후보자로서 그들 구성원 중에서 하나를 임명한다. 그리하여 지고자 통치자들 각자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150,000년에 해당하는 30,000년 동안 별자리 본부에서 현행 정책에 따라 봉사를 수행한다.

별자리 정부의 실재적인 집권 우두머리들인 100명의 별자리 아버지들은 창조자 아들의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들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토의하는 범위와 깊이는 무제한적이지만 주로 별자리들의 복지에 대하여 그리고 전체 지역우주의 관리-행정 통일에 대하여 관여한다.

별자리 아버지가, 그가 자주 그렇게 하듯이, 우주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급 동료는 별자리 관련사들에 대한 임시 지도자가 된다. 선임 연관-동료의 일반적인 기능은 영적인 관련사들을 감독하는 것인 반면, 후임 연관-동료는 별자리의 물리적인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아무튼 지고자 셋, 모두가 그 실행의 세부사항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주요 정책도 별자리 안에서 결코 수행되지 않는다.

영 지능과 통신 경로들의 전체 기능구조는 별자리 지고자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35:5.7 (390.4) Often a corps of twelve or more Vorondadek Sons sits en banc as a high court of review and appeal concerning special cases involving the status of a planet or a system. But their work more largely pertains to the legislative functions indigenous to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As a result of all these services, the Vorondadek Sons have become the historian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personally familiar with all the political struggles and the social upheavals of the inhabited worlds.

6. THE CONSTELLATION FATHERS

35:6.1 (390.5) At least three Vorondadeks are assigned to the rulership of each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of a local universe. These Sons are selected by the Creator Son and are commissioned by Gabriel as the *Most Highs* of the constellations for service during one dekamillennium — 10,000 standard years, about 50,000 years of Urantia time. The reigning Most High, the Constellation Father, has two associates, a senior and a junior. At each change of administration the senior associate become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he junior assumes the duties of the senior, while the unassigned Vorondadeks resident on the Salvington worlds nominate one of their number as candidate for selection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junior associate. Thus each of the Most High rulers, in accordance with present policy, has a period of service on the headquarters of a constellation of three dekamillenniums, about 150,000 Urantia years.

35:6.2 (390.6)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Fathers, the actual presiding heads of the constellation governments, constitute the supreme advisory cabinet of the Creator Son. This council is in frequent session at universe headquarters and is unlimited in the scope and range of its deliberations but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e constellations and with the un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35:6.3 (391.1) When a Constellation Father is in attendance upon duties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as he frequently is, the senior associate becomes acting director of constellation affairs. The normal function of the senior associate is the oversight of spiritual affairs, while the junior associate is personally occupied with the physical welfare of the constellation. No major policy, however, is ever carried out in a constellation unless all three of the Most Highs are agreed upon all the details of its execution.

35:6.4 (391.2) The entire mechanism of spirit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hannels is at the

구원자별에서 그들의 상급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직접 하급자인, 지역체계들의 주권자들과 완전한 접촉을 이룬다. 그들은 별자리의 상태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체계 주권자들과의 자주 회의를 갖는다.

지고자들은 일단(一團)의 조연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별자리 본부의 다양한 집단들의 현존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지역적 필요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때때로 숫자와 인원이 다르다. 긴급 시에 그들은 관리-행정적인 업무를 돕도록 추가적인 보론다텍의 아들들을 요청하며 또한 신속하게 응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들 자신의 별자리인 놀라시아텍은 현재 12명의 보론다텍 아들들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제 7 장. 보론다텍 세계

구원자별을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1차 구체들의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세계들의 제2 집단은 보론다텍 행성들을 구성한다. 이 구체들 각각은, 그것을 돌고 있는 여섯 위성들과 함께, 보론다텍 활동의 특별한 위상에 배치되어 있다. 이 49개 영역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우주 법률에 관한 교육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별자리들의 본부 세계들에서 기능할 때 입법모임을 관측하지만, 이 보론다텍 세계들에서 그들은 상급자 보론다텍들의 감독 아래 지역우주의 실제적인 일반적 법의 제정에 참여한다. 그러한 법령들은 100개 별자리들의 자치 입법 모임들의 다양한 결정들을 조화-협동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다. 보론다텍 학교들에서 수행될 가르침은 유버사에서 보다는 탁월하다. 이 훈련은 그 여섯 위성들에서의 추가적 작업과 함께 첫 구체로부터 확장되어 나머지 여섯 1차 구체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위성 집단들을 통해 위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공부와 실천적 작업의 이 세계들에서 수많은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될 것이다.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계시 책임이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필사 존재들의 물질적 마음에게 이 일들을 묘사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우리는 이 숭고한 활동들의 의미를 전달할 낱말이 없는 형편이다, 이 49개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가질 새로운 이직종에 대한 예증으로 활용할만한 비슷한 인간의 이행들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상승 체제의 부분이 아닌 다른 많은 활동들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보론다텍 세계들에 중심을 두고 있다.

disposal of the constellation Most Highs. They are in perfect touch with their superiors on Salvington and with their direct subordinates, the sovereigns of the local systems. They frequently convene in council with these System Sovereigns to deliberate upon the state of the constellation.

35:6.5 (391.3) The Most Highs surround themselves with a corps of counselors, which varies in number and personnel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of the various groups at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also as the local requirements vary. During times of stress they may ask for, and will quickly receive, additional Sons of the Vorondadek order to assist with the administrative work. Norlatiadek, your own constellation, is at present administered by twelve Vorondadek Sons.

7. THE VORONDADEK WORLDS

35:7.1 (391.4) The second group of seven worlds in the circuit of seventy primary spheres surrounding Salvington comprise the Vorondadek planets. Each of these spheres, with its six encircling satellites, is devoted to a special phase of Vorondadek activities. On these forty-nine realms the ascending mortals secure the acme of their education respecting universe legislation.

35:7.2 (391.5) The ascending mortals have observed the legislative assemblies as they func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constellations, but here on these Vorondadek worlds they participate in the enactment of the actual general legislation of the local universe under the tutelage of the senior Vorondadeks. Such enactments are designed to co-ordinate the varied pronouncements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The instruction to be had in the Vorondadek schools is unexcelled even on Uversa. This training is progressive, extending from the first sphere, with supplemental work on its six satellites, on up through the remaining six primary spheres and their associated satellite groups.

35:7.3 (391.6) The ascending pilgrims will be introduced to numerous new activities on these worlds of study and practical work. We are not forbidden to undertake the revelation of these new and undreamed-of pursuits, but we despair of being able to portray these undertakings to the material mind of mortal beings. We are without words to convey the meanings of these supernal activities, and there are no analogous human engagements which might be utilized as illustrations of these new occupations of the ascending mortals as they pursue their studies on these forty-nine worlds. And many other activities, not a part of the ascendant regime, are centered on these Vorondadek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제 8 장. 라노난덱 아들

보론다덱들을 창조한 후에, 창조자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은 우주 아들관계의 세 번째 계층인 라노난덱들을 실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하였다. 체계 관리-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임무들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역체계의 통치자인 체계 주권자들로서 그리고 거주세계들의 관리-행정적 우두머리인 행성영주들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아들관계 창조에서 후대의 낮은—신성 차원들을 고려할 때—계층으로서, 이 존재들은 그 다음에 있을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멜기세덱 세계들의 특별한 훈련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요구된다. 그들은 멜기세덱 대학에서 최초의 학생들이며 능력과 개인성과 성취도에 따라서 멜기세덱 선생들과 시험관들에 의해 분류되고 보증되었다.

네바돈 우주에는 정확하게 1,200만 명의 라노난덱들이 실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멜기세덱 구체를 통과하였을 때, 그들은 최종적인 시험에서 세 부류로 나뉘었다.

1. 1차 라노난덱들. 가장 높은 계급으로 709,841명이 있다. 이들은 별자리들의 최고협의회에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보좌관들로서 그리고 우주의 보다 높은 행정 업무에 조언자들로서 지정되었다.

2. 2차 라노난덱들. 멜기세덱으로부터 창발하는 이 계층에는 10,234,601명이 있다. 그들은 행성영주들로서 그리고 그 계층의 예비자들로써 배정된다.

3. 3차 라노난덱들. 이 집단에는 1,055,558명이 있다. 이 아들들은 하위(下位) 보좌관들, 심부름꾼들, 보호관리자들, 위원들, 관찰자들로서 기능하며, 체계와 그 구성 세계들의 잡다한 임무들을 추진한다.

이 아들들에게는, 진화적인 존재들처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멜기세덱 훈련을 받게 될 때, 일단 시험을 받고 분류되면, 그들은 배정된 그 계급에서 계속 종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은 번식에 참여하지 못하며, 우주 안에 있는 그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라노난덱 계층의 아들들의 숫자는 구원자별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우주 조화-협동이자 및 별자리 조언자100,000

8. THE LANONANDEK SONS

35:8.1 (392.1) After the creation of the Vorondadeks,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unite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nto existence the third order of universe sonship, the Lanonandeks. Although occupied with varied tasks connected with the system administrations, they are best known as System Sovereigns, the rulers of the local systems, and as Planetary Princes, the administrative heads of the inhabited worlds.

35:8.2 (392.2) Being a later and lower — as concerns divinity levels — order of sonship creation, these beings were required to pass through certain courses of training on the Melchizedek worlds in preparation for subsequent service. They were the first students in the Melchizedek University and were classified and certified by their Melchizedek teachers and examiners according to ability, personality, and attainment.

35:8.3 (392.3) The universe of Nebadon began its existence with exactly twelve million Lanonandeks, and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the Melchizedek sphere, they were divided in the final tests into three classes:

35:8.4 (392.4) 1. *Primary Lanonandeks.* Of the highest rank there were 709,841. These are the Sons designated as System Sovereigns and assistants to the supreme councils of the constellations and as counselors in the higher administrative work of the universe.

35:8.5 (392.5) 2. *Secondary Lanonandeks.* Of this order emerging from Melchizedek there were 10,234,601. They are assigned as Planetary Princes and to the reserves of that order.

35:8.6 (392.6) 3. *Tertiary Lanonandeks.* This group contained 1,055,558. These Sons function as subordinate assistants, messengers, custodians, commissioners, observers, and prosecute the miscellaneous duties of a system and its component worlds.

35:8.7 (392.7) It is not possible, as it is with evolutionary beings, for these Sons to progress from one group to another. When subjected to the Melchizedek training, when once tested and classified, they serve continuously in the rank assigned. Neither do these Sons engage in reproduction; their number in the universe is stationary.

35:8.8 (392.8) In round numbers the Lanonandek order of Sons is classified on Salvington as follows:

35:8.9 (392.9) Universe Co-ordinators and Constellation Counselors. 100,000

2.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600,000
3. 행성영주 및 예비자.10,000,000
4. 메신저 무리단400,000
5. 보호관리자들 및 기록자100,000
6. 예비무리단800,000

라노난덱들은 멜기세덱들과 보론다덱들보다 어느 정도 낮은 계층의 아들관계로, 그들은 우주의 하위(下位) 단위들에서 더 크게 봉사를 수행하며, 그것은 그들이 지능 종족들의 비교적 낮은 창조체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빛나갈 수 있고, 우주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라노난덱들은, 특별히 1차 계층은, 전체 지역우주 행정-관리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다재다능하다. 집행 능력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하는 존재는 가브리엘과 그의 계시되지 않은 연관-동료들밖에 없다.

- 35:8.10 (392.10) System Sovereigns and Assistants..... 600,000
- 35:8.11 (392.11) Planetary Princes and Reserves.....10,000,000
- 35:8.12 (392.12) Messenger Corps..... 400,000
- 35:8.13 (392.13) Custodians and Recorders..... 100,000
- 35:8.14 (392.14) Reserve Corps..... 800,000

35:8.15 (392.15) Since Lanonandeks are a somewhat lower order of sonship than the Melchizedeks and the Vorondadeks, they are of even greater service in the subordinate units of the universe, for they are capable of drawing nearer the lower creatures of the intelligent races. They also stand in greater danger of going astray, of departing from the acceptable technique of universe government. But these Lanonandeks, especially the primary order, are the most able and versatile of all local universe administrators. In executive ability they are excelled only by Gabriel and his unrevealed associates.

제 9 장. 라노난덱 통치자

라노난덱들은 행성들의 계속적인 통치자들이며 체계들의 순회 주권자들이다. 그러한 한 아들이, 너희의 거주세계들의 지역체계의 본부인 에루셈에서 현재 통치하고 있다.

체계 주권자들은 거주세계들의 각 체계 본부에서 둘 또는 세 명의 위원회들로서 통치한다. 별자리 아버지는 이 라노난덱들 중 한 명을 매 1만 년마다 우두머리로 임명한다. 때로는 세 명의 우두머리 체계에 변화가 없다. 그 문제는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체계 정부들은 어떤 종류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원 구성을 갑작스런 변화시키지 않는다.

체계 주권자들 또는 보좌관들이 해임되었을 때, 그들의 자리는 별자리 본부에 위치한 최고회의에 의해 그 계층의 예비자들, 에덴시아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큰 집단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에 의해 대체된다.

라노난덱 최고회의는 다양한 별자리 본부들에 위치한다. 그러한 기관은 별자리 아버지의 상급(上級) 지고자 연관-동료에 의해 통솔되는 반면, 하급자 동료는 2차 계층의 예비자들을 감독한다.

체계 주권자들은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들은 거주세계들의 지역적인 관련자들에서 거의 주권적이다. 그들은 행성영주들, 물질아들들,

9. THE LANONANDEK RULERS

35:9.1 (393.1) The Lanonandeks are the continuous rulers of the planets and the rotating sovereigns of the systems. Such a Son now rules on Jerusem, the headquarters of your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35:9.2 (393.2) The System Sovereigns rule in commissions of two or three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ystem of inhabited worlds. The Constellation Father names one of these Lanonandeks as chief every dekamillennium. Sometimes no change in the head of the trio is made, the matter being entirely optional with the constellation rulers. System governments do not suddenly change in personnel unless a tragedy of some sort occurs.

35:9.3 (393.3) When System Sovereigns or assistants are recalled, their places are filled by selections made by the supreme council located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rom the reserves of that order, a group which is larger on Edentia than the average indicated.

35:9.4 (393.4) The supreme Lanonandek councils are stationed on the various constellation headquarters. Such a body is presided over by the senior Most High associate of the Constellation Father, while the junior associate supervises the reserves of the secondary order.

35:9.5 (393.5) The System Sovereigns are true to their names; they are well-nigh sovereign in the local affairs of the inhabited worlds. They are

그리고 사명활동 영들에 대한 그들의 지도에 있어서 거의 아버지와의 같은 위치에 있다. 주권자의 개인적 장악은 거의 완벽하다. 그 통치자들은 중앙 우주로부터의 삼위일체 관찰자들에 의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집행 부서이며, 입법 명령 집행 보호관리자로서 그리고 사법 판결 적용을 위한 집행자로서, 그들은 미가엘 아들의 뜻에 대한 개인적 불충이 가장 쉽고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주장을 하려고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한 자리에 대변한다.

우리의 지역우주는 700명 이상의 라노난텍 아들들이 우주 정부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불운을 겪었으며, 그리하여 여러 체계들과 수많은 행성들에서 혼란에 빠졌다. 실패한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오직 세 명만이 체계 주권자들이었다; 실천적으로 이 아들들 전체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층들, 행성영주들과 제3 라노난텍들 출신이었다.

고결한-순수성에서 일탈한 이들 아들의 많은 숫자는 창조자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함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신성하게 완전토록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적 창조체들을 더 잘 납득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오르본톤 안에 있는 모든 지역우주들 중에서, 우리 우주는, 헨셀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층의 아들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잃었다. 유머사에서는 우리가 네바돈에서 너무 많은 행정-관리적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라노난텍 아들들 계층이 선택과 계획에 그렇게 커다란 정도의 개인적 해방과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관측을 비판하는 각도에서 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의 창조자는 이것을 할 충분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의 아들들이 우주의 초기 시대에 과도한 재난을 일으키는 동안, 사건들이 충분히 선별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철저하게 시험을 받은 이 아들들의 더 높은 충성과 보다 충분한 자발적 봉사의 결과는 그 초기 시대의 혼돈과 시련의 보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고위 통치자들의 주장이다.

체계 본부에서 반역의 사건 안에서는, 대개 새로운 주권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임명되지만, 개별 행성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물질적 창조의 구성단위들이며, 창조체 자유의지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최종적인 판결에서 하나의 요인이 된다. 후임자 행성영주들은 고립된 세계들, 그곳의 권위의 영주들이 빗나가 버린 행성들을 위해 지명되지만,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다른 사명활동 개인성들에 의해 채택된 교정 기준에 의해 반란 결과들이 부분적으로 극복되고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세계들에 대한 활동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성영주에 의한 반역은 그의 행성을 즉시 고립시키며; 지역적인 영적 순환회로들은

almost paternal in their dir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s, the Material Sons, and the ministering spirits. The personal grasp of the sovereign is all but complete. These rulers are not supervised by Trinity observers from the central universe. They are the executive divis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as custodians of the enforcement of legislative mandates and as executives for the application of judicial verdicts, they present the one place in all universe administration where personal disloyalty to the will of the Michael Son could most easily and readily intrench itself and seek to assert itself.

35:9.6 (393.6) Our local universe has been unfortunate in that over seven hundred Sons of the Lanonandek order have rebelled against the universe government, thus precipitating confusion in several systems and on numerous planets. Of this entire number of failures only three were System Sovereigns; practically all of these Sons belonged to the second and third orders, Planetary Princes and tertiary Lanonandeks.

35:9.7 (393.7) The large number of these Sons who have lapsed from integrity does not indicate any fault in creatorship. They could have been made divinely perfect, but they were so created that they might better understand, and draw near to, the evolutionary creatures dwelling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35:9.8 (393.8) Of all the local universes in Orvonton, our universe has, with the exception of Henselon, lost the largest number of this order of Sons. On Uversa it is the consensus that we have had so much administrative trouble in Nebadon because our Sons of the Lanonandek order have been created with such a large degree of personal liberty in choosing and planning. I do not make this observation by way of criticism. The Creator of our universe has full authority and power to do this. It is the contention of our high rulers that, while such free-choosing Sons make excessive trouble in the earlier ages of the universe, when things are fully sifted and finally settled, the gains of higher loyalty and fuller volitional service on the part of these thoroughly tested Sons will far more than compensate for the confusion and tribulations of earlier times.

35:9.9 (394.1) In the event of rebellion on a system headquarters, a new sovereign is usually installed within a comparatively short time, but not so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y are the component units of the material creation, and creature free will is a factor in the final adjudication of all such problems. Successor Planetary Princes are designated for isolated worlds, planets whose princes of authority may have gone astray, but they do not assume active rulership of such worlds until the results of insurrection are partially overcome and removed by the remedial measures adopted by the Melchizedeks and other ministering personalities.

즉각 분리된다. 오직 증여의 아들만이 영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세계에서의 행성간 통신선을 복구시킬 수 있다.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이 아들들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존재한다, 많은 숫자가 자비로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불이행하였던 그 위치에서 결코 다시 기능하지는 못한다. 복귀된 후에 그들은 보호관리 임무와 물리적 관리-행정 부서에 배정된다.

제 10 장. 라노난텍 세계

70개 행성들의 구원자별 순환회로 안의 일곱 세계들로 구성된 세 번째 집단은, 그들의 개별적인 42개 위성들과 함께, 행정-관리적 구체들의 라노난텍 군(群)을 구성한다. 이 영역들에서 그 전에 체계 주권자였던 자들의 무리단에 속한 체험을 가진 라노난텍들은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세라핌천사 무리의 행정-관리적 선생들로서 직무를 감당한다. 진화적인 필사자들은 체계 수도들에서 일하는 체계 행정-관리자들을 보게 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10,000개 지역체계들의 행정-관리적 결정들의 실제적인 조화-협동에 관여한다.

지역우주들의 이 행정학교들은 체계 주권자들로서 그리고 별자리 조연자들로서 오랫동안 체험을 가진 라노난텍 아들들의 무리단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이 집행자 대학들보다 우수한 것은 엔사의 행정학교 밖에 없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훈련 구체들 역할을 하는 한편, 라노난텍 세계들은 우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정-관리적 작용과 관계되는 광범위한 일들의 중심이다.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응용지식—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훈련—의 실천적인 학교들에서 자신들의 학업을 추구한다. 멜기세덱에 의해 후원되는 우주 교육 체계는 실천적이고 진보적이고 의미심장하며 체험적이다. 그것은 물질적, 지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인 것들의 훈련을 포용한다.

그 계층의 구원된 아들들의 대부분이 행성 관련사들의 보호관리자와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것은 라노난텍들의 이 행정-관리적 구체들과 관련된다. 그리고 제안된 복권(復權)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반역으로 불이행한 이 행성영주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적어도 네바돈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기 전까지 일상적인 이 자격들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이다.

Rebellion by a Planetary Prince instantly isolates his planet; the local spiritual circuits are immediately severed. Only a bestowal Son can re-establish interplanetary lines of communication on such a spiritually isolated world.

35:9.10 (394.2) There exists a plan for saving these wayward and unwise Sons, and many have availed themselves of this merciful provision; but never again may they function in those positions wherein they defaulted. After rehabilitation they are assigned to custodial duties and to departments of physical administration.

10. THE LANONANDEK WORLDS

35:10.1 (394.3) The third group of seven worlds in the Salvington circuit of seventy planets, with their respective forty-two satellites, constitute the Lanonandek cluster of administrative spheres. On these realms the experienced Lanonandeks belonging to the ex-System Sovereign corps officiate as administrative teachers of the ascending pilgrims and the seraphic hosts. The evolutionary mortals observe the system administrators at work on the system capitals, but here they participate in the actual co-ord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nouncements of the ten thousand local systems.

35:10.2 (394.4) These administrative schools of the local universe are supervised by a corps of Lanonandek Sons who have had long experience as System Sovereigns and as constellation counselors. These executive colleges are excelled only by the administrative schools of Ensa.

35:10.3 (394.5) While serving as training spheres for ascending mortals, the Lanonandek worlds are the centers for extensive undertakings having to do with the normal and routine administrative operations of the universe. All the way in to Paradise the ascending pilgrims pursue their studies in the practical schools of applied knowledge — actual training in really doing the things they are being taught. The universe educational system sponsored by the Melchizedeks is practical, progressive, meaningful, and experiential. It embraces training in things material, intellectual, morontial, and spiritual.

35:10.4 (394.6) It is in connection with these administrative spheres of the Lanonandeks that most of the salvaged Sons of that order serve as custodians and directors of planetary affairs. And these defaulting Planetary Princes and their associates in rebellion who choose to accept the proffered rehabilitation will continue to serve in these routine capacities, at least until the universe of Nebadon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그렇지만, 보다 오래된 체계들 안에 있는 라노난덱 아들들 대부분은 봉사, 관리-행정, 그리고 영적인 성취에서 훌륭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의 개인적 해방의 오류와 자아-결정의 허구성을 통하여 실수를 범하는 자신들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결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집단이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후원되었음]

35:10.5 (394.7) Many of the Lanonandek Sons in the older systems, however, have established wonderful records of service, administration,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y are a noble, faithful, and loyal group, notwithstanding their tendency to fall into error through fallacies of personal liberty and fictions of self-determination.

35:10.6 (394.8) [Sponsored by the Chief of Archangels acting by authority of Gabriel of Salvington.]

제 36 편 생명운반자

⇨ 035

유랜시아 책

037 ⇨

부 II. 지역우주

제 36 편 생명운반자

섹션

소개

제 1 장. 생명운반자들의 기원과 본성

제 2 장. 생명운반자 세계

제 3 장. 생명 이식(移植)

제 4 장. 멜기세덱 생명운반자

제 5 장. 일곱 보조 마음-영(靈)

제 6 장. 살아있는 기세

PAPER 36

THE LIFE CARRIER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Life Carriers

2. The Life Carrier Worlds

3. Life Transplantation

4. Melchizedek Life Carriers

5.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6. Living Forces

소개

생명은 자발적으로 기원하지 않는다. 생명은 (계시되지 않은) 존재의 고안건축가들에 의해 조성된 계획에 따라 구성되며 직접적인 주입에 의해서 또는 지역우주들의 생명운반자들의 작용의 결과로서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 위에 출현한다. 이 생명운반자들은 우주 아들의 다양한 가족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재다능하다. 그들은 창조체 생명을 설계하고 행성 구체들에게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러한 새로운 세계들에게 심은 후에는, 그것의 발달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긴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

INTRODUCTION

36:0.1 (396.1) LIFE does not originate spontaneously. Life is constructed according to plans formulated by the (unrevealed) Architects of Being and appears on the inhabited planets either by direct importation o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s of the Life Carriers of the local universes. These carriers of life are among the most interesting and versatile of the diverse family of universe Sons. They are intrusted with designing and carrying creature life to the planetary spheres. And after planting this life on such new worlds, they remain there for long periods to foster its development.

제 1 장. 생명운반자들의 기원과 본성

생명운반자들이 비록 신성한 아들관계의 가족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주 아들들 중에서 독특하고도 별개의 모습으로, 그들의 창조에 초우주의 통치자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우주의 지능 생명 집단이다. 생명운반자들은 세 명의 선재하는 개인성들의 자손이다: 창조자 아들, 우주 어머니 영, 그리고 관계된 초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세 명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 중에서 지정된 한 명. 지능적 생명의 소멸을 홀로 명령할 수 있는 이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진화하는 세계들에

1. ORIGIN AND NATURE OF LIFE CARRIERS

36:1.1 (396.2) Though the Life Carriers belong to the family of divine sonship, they are a peculiar and distinct type of universe Sons, being the only group of intelligent life in a local universe in whose creation the rulers of a superuniverse participate. The Life Carriers are the offspring of three pre-existent personalities: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by designation, one of the three Ancients of Days presiding over the destinies of the superuniverse concerned. These

물리적인 생명을 정하는 임무를 맡은 생명운반자들의 창조에 참여한다.

네바돈 우주에 우리는 1억 명의 생명운반자들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생명을 퍼뜨리는 유능한 이 무리단은 진정한 자아-관리는 아니다.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고 네바돈의 첫 번째 태생이며 기원적인 생명운반자인 남비아로 구성된 생명-결정 3인조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부문적인 관리-행정의 모든 위상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자치적이다.

생명운반자들은 크게 세 부문으로 분류 된다: 첫 번째 부문은 상급 생명운반자들이고, 두 번째는 보좌관들이며, 세 번째는 보호관리자들이다. 1차 부문은 생명 현시활동의 다양한 형태의 12개 전문가 집단들로 다시 나뉜다. 이 세 부문들의 분리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생명운반자들의 본부 구체에서 그러한 목적들을 위한 처리행위를 행하였다. 멜기세덱들은 그 후로 계속 생명운반자들과 가깝게 연관되어 왔으며 그들이 새로운 행성에 생명을 정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그들을 동행하였다.

진화적인 행성이 빛과 생명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생명운반자들은 세계와 그것의 영화롭게 된 존재들의 한층 더한 관리-행정과 발달을 보조할 수 있는 자문 능력을 갖는 보다 높은 심의 기관들로 조직된다. 진화하는 우주의 후기와 안정된 시대에 이 생명운반자들은 많은 새로운 임무들을 맡게 된다.

제 2 장. 생명운반자 세계

멜기세덱들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7개의 1차 구체들의 네 번째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한다. 생명운반자들의 이 세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운반자 본부.
2. 생명-계획 구체.
3. 생명-보존 구체.
4. 생명 진화의 구체.
5. 마음과 연관된 생명의 구체.
6. 살아있는 존재에서의 마음과 영의 구체.
7. 계시되지 않은 생명의 구체.

이 각각의 첫 번째 세 구체들은 여섯 개의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주에서의 모든 생명운반자 활동들의 특별한 위상들이 그 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

Ancients of Days, who alone can decree the extinction of intelligent life,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 Life Carriers, who are intrusted with establishing physical life on the evolving worlds.

36:1.2 (396.3) In the universe of Nebadon we have on record the creation of one hundred million Life Carriers. This efficient corps of life disseminators is not a truly self-governing group. They are directed by the life-determining trio, consisting of Gabriel, the Father Melchizedek, and Nambia, the original and first-born Life Carrier of Nebadon. But in all phases of their divisional administration they are self-governing.

36:1.3 (396.4) Life Carriers are graded into three grand divisions: The first division is the senior Life Carriers, the second, assistants, and the third, custodians. The primary division is subdivided into twelve groups of specialists in the various forms of life manifestation. The segregation of these three divisions was effected by the Melchizedeks, who conducted tests for such purposes on the Life Carriers' headquarters sphere. The Melchizedeks have ever since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fe Carriers and always accompany them when they go forth to establish life on a new planet.

36:1.4 (396.5) When an evolutionary planet is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Life Carriers are organized into the higher deliberative bodies of advisory capacity to assist in the further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and its glorified beings. In the later and settled ages of an evolving universe these Life Carriers are intrusted with many new duties.

2. THE LIFE CARRIER WORLDS

36:2.1 (397.1) The Melchizedeks have the general oversight of the fourth group of seven primary spheres in the Salvington circuit. These worlds of the Life Carriers are designated as follows:

36:2.2 (397.2) 1. The Life Carrier headquarters.

36:2.3 (397.3) 2. The life-planning sphere.

36:2.4 (397.4) 3. The life-conservation sphere.

36:2.5 (397.5) 4. The sphere of life evolution.

36:2.6 (397.6) 5. The sphere of life associated with mind.

36:2.7 (397.7) 6. The sphere of mind and spirit in living beings.

36:2.8 (397.8) 7. The sphere of unrevealed life.

36:2.9 (397.9) Each of these primary spheres is surrounded by six satellites, on which the special phases of all the Life Carrier activities in the universe are centered.

1번 세계, 본부 구체는, 그것에 소속된 여섯 개의 위성들과 함께, 일반적 생명, 그것의 알려진 모든 현시활동 위상들의 생명에 대한 연구에 헌신한다. 생명 계획의 대학이 이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는 유버사와 하보나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온 선생들과 충고자들이 기능한다. 그리고 나는 보조 마음-영들의 일곱 개 중앙 설치장소가 생명운반자들의 이 세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계시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0이라는 숫자—십진법 소수의 체계—는 물리적 우주에는 선천적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의 권역은 3과 7 그리고 12에 의해서 또는 이 기본 숫자들의 배수와 조합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다. 세 명의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들의 체계에 따라, 세 개의 시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 계획들이 존재하며, 네바돈 우주에는 이 세 개의 생명기본 형태들이 생명의 세 개의 다른 모습의 행성들에 분리되어 있다. 기원적으로는 전송할 수 있는 생명의 12개 별개의 신성한 개념들이 있었다. 이 12라는 숫자는, 그것의 분할과 배수로, 모든 일곱 초우주들의 전체 기본적인 생명 원형들을 전반에 적용된다. 또한 살아있는 물체의 재생산 배열에 대한 근본적 정렬인, 생명 설계의 일곱 개의 고안건축 유형들이 있다. 오르본톤 생명 원형들은 12명의 유전성 운반자들로 형성된다. 의지 창조체들의 서로 다른 계층들은 12, 24, 48, 96, 192, 384, 그리고 768로 배열된다. 유란시아에는 인간 번식의 성별 세포들 속에 원형들 통제의 48개 단위들—특색 결정요소들—이 있다.

2번 세계는 생명-설계 구체이다; 여기서는 모든 새로운 생명조직의 양식들이 산출된다. 기원적인 생명 설계들이 창조자 아들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이 설계들의 실제적인 작업은 생명운반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맡겨져 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생명 계획들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그것들은 본부 구체로 전달되며, 그곳에서 그것들은 일단의 자문 멜기세덱들과 협력하는 상급자 생명운반자들의 최고협의회에 의해 끊임없이 세밀하게 조사된다. 만일 그 계획들이 전에 받아들여졌던 공식들과 다르게 되면, 그것들은 반드시 창조자 아들에게 판결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한 심의들이 있어서 자주 창조자 아들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행성의 생명은, 어떤 면들에서 비슷하지만, 각각의 진화 세계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다르다. 세계들의 단일 가계안의 동형(同形) 생명 계통에서조차도, 생명은 어떤 두 행성들에서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 생명운반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생명 공식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 끊임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행성유형이 있다.

생명 현시활동들의 모체(母體) 원형들들 그리

36:2.10 (397.10) *World Number One*, the headquarters sphere, together with its six tributary satellites, is devoted to the study of universal life, life in all of its known phases of manifestation. Here is located the college of life planning, wherein function teachers and advisers from Uversa and Havona, even from Paradise. And I am permitted to reveal that the seven central emplacement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situated on this world of the Life Carriers.

36:2.11 (397.11) The number ten — the decimal system — is inherent in the physical universe but not in the spiritual. The domain of life is characterized by three, seven, and twelve or by multiples and combinations of these basic numbers. There are three primal and essentially different life plans, after the order of the three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and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se three basic forms of life are segregat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planets. There were, originally, twelve distinct and divine concepts of transmissible life. This number twelve, with its subdivisions and multiples, runs throughout all basic life patterns of all seven superuniverses. There are also seven architectural types of life design, fundamental arrangements of the reproducing configurations of living matter. The Orvonton life patterns are configured as twelve inheritance carriers. The differing orders of will creatures are configured as 12, 24, 48, 96, 192, 384, and 768. On Urantia there are forty-eight units of pattern control — trait determiners — in the sex cells of human reproduction.

36:2.12 (397.12) *The Second World* is the life-designing sphere; here all new modes of life organization are worked out. While the original life designs are provided by the Creator Son, the actual outworking of these plans is intrusted to the Life Carriers and their associates. When the general life plans for a new world have been formulated, they are transmitted to the headquarters sphere, where they are minutely scrutinized by the supreme council of the senior Life Carriers in collaboration with a corps of consulting Melchizedeks. If the plans are a departure from previously accepted formulas, they must be passed upon, and endorsed by, the Creator Son. The chief of Melchizedeks often represents the Creator Son in these deliberations.

36:2.13 (397.13) Planetary life, therefore, while similar in some respects, differs in many ways on each evolutionary world. Even in a uniform life series in a single family of worlds, life is not exactly the same on any two planets; there is always a planetary type, for the Life Carriers work constantly in an effort to improve the vital formulas committed to their keeping.

36:2.14 (398.1) There are over one million

고 수많은 기본적 기능변형들을 구성하는 1백만 이상의 근본적 또는 조화우주적 화학 공식들이 있다. 생명-계획 구체의 1번 위성은 우주 물리학자 및 전기 화학자들의 구체이며, 이들은 소위 배아 원형질이라 불리는 생명 전달의 물질적 매체들을 이룩하는 데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근본 단위들을 포착하고 조직하며 조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생명 운반자들의 기술 보좌관들이다.

행성생명-계획 실험실들은 2번 세계의 두 번째 위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실험실들에서 생명 운반자들과 그들의 모든 연관-동료들은 네바돈의 십진법 소수의 행성들에 이식시키기 위해 계획된 생명들을 수정하고 어떻게든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맹기세택과 협동한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은 바로 이 세계에서 계획되었고 부분적으로 이룩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란시아가 십진법 소수의 행성, 생명-실험 세계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세계들 중에서 한 개마다 표준 생명 설계에 있어서 다른 (비(非)실험적) 세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변화가 허용된다.

3번 세계는 생명의 보존에 헌신한다. 이곳에서 생명 보호와 보존의 다양한 형태들이 생명운반자 무리단의 보좌관들과 보호관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개발된다. 모든 새로운 세계들을 위한 생명 계획들은 초기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생명-보존 위원회가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데, 위원회는 기본적인 생명 원형들의 조종에 매우 숙달된 보호관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란시아에는 그러한 보호관리자 위원들이, 생명 물질의 고안건축적 조직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적인 원형들, 곧 부모 원형들마다 둘씩, 24명이 있었다. 너희와 같은 그러한 행성에서 생명의 가장 높은 형태는, 24개의 원형들 단위를 지니고 있는 생명-운반 묶음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그리고 지적 생명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기초 위에서, 자라나오기 때문에, 정신 조직의 4개의 그리고 20개의 기본 계층들이 실존으로 들어오고 있다.)

4번 구체와 그것의 보조 위성들은 일반적으로 창조체 생명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그리고 특히 어떤 한 생명 차원의 진화적 선행자들에게 헌신한다. 진화 세계의 기원적 생명 원형질은 모든 미래의 발전적 변형들과 모든 그에 따르는 진화적 변화들 그리고 변용들을 위한 충분한 잠재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생명 변형의 그러한 멀리까지 미치는 계획을 위한 준비는 동물 및 식물 생명의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많은 형태들의 출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행성진화의 그러한 부산물들은, 예견된 것이든 예견되지 않은 것이든, 오직 사라지기 위하여 활동무대에 등장하지만, 이 긴 과정을 전체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두루 행성생명 계획과 종족 구성에 대한 기원적 설계자들의 현명하고도 지능적인 공식화의 끈들이 흐르고 있다. 하등 생명 형태를 정복하려고 행하는 고등 창조체들의 위로 향하는 오랜 투쟁에서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

fundamental or cosmic chemical formulas which constitute the parent patterns and the numerous basic functional variations of life manifestations. Satellite number one of the life-planning sphere is the realm of the universe physicists and electrochemists who serve as technical assistants to the Life Carriers in the work of capturing, organizing, and manipulating the essential units of energy which are employed in building up the material vehicles of life transmission, the so-called germ plasm.

36:2.15 (398.2) The planetary life-planning laboratories are situated on the second satellite of this world number two. In these laboratories the Life Carriers and all their associates collaborate with the Melchizedeks in the effort to modify and possibly improve the life designed for implantation on the *decimal planets* of Nebadon. The life now evolving on Urantia was planned and partially worked out on this very world, for Urantia is a decimal planet, a life-experiment world. On one world in each ten a greater variance in the standard life designs is permitted than on the other (nonexperimental) worlds.

36:2.16 (398.3) *World Number Three* is devoted to the conservation of life. Here various modes of lif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re studied and developed by the assistants and custodians of the Life Carrier corps. The life plans for every new world always provide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life-conservation commission, consisting of custodian specialists in the expert manipulation of the basic life patterns. On Urantia there were twenty-four such custodian commissioners, two for each fundamental or parent pattern of the architectural organization of the life material. On planets such as yours the highest form of life is reproduced by a life-carrying bundle which possesses twenty-four pattern units. (And since the intellectual life grows out of, and upon the foundation of, the physical, there come into existence the four and twenty basic orders of psychic organization.)

36:2.17 (398.4) *Sphere Number Four* and its tributary satellites are devoted to the study of the evolution of creature life in general and to the evolutionary antecedents of any one life level in particular. The original life plasm of an evolutionary world must contain the full potential for all future developmental variations and for all subsequent evolutionary changes and modifications. The provision for such far-reaching projects of life metamorphosis may require the appearance of many apparently useless forms of animal and vegetable life. Such by-products of planetary evolution, foreseen or unforeseen, appear upon the stage of action only to disappear, but in and through all this long process there runs the thread of the wise and intelligent formulations of the original designers of the planetary life plan and

서, 바깥 쪽으로는 때때로 많은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의 평화와 안락과 너무도 반목을 일으키는 엄청난 부조화가 지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진화에서의 모든 다양한 부산물들은 생명체의 더욱 높은 지능 형태의 최종적이고도 충분한 기능에 필연적이다.

5번 세계는 마음과 연관된 생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것의 위성들 각각은 창조체 생명과 상관된 창조체 마음의 한 위상에 헌신한다. 사람이 이해하는 마음은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에 의해 마음의 가르칠 수 없는 또는 기계적인 차원들 위에 첨가되는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자질이다. 생명 원형들은 이 부차적인 존재들에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 우주들에 두루 작동하는 다른 영 사명 활동들에게 다양하게 반응한다. 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적 창조체들의 능력은 연관된 마음 자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것은 차례로 이 동일한 필사 창조체들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주도해 왔다.

6번 세계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형태들과 유기체들과 연관하는 것과 같이 마음과 영의 상호 관계에 전념한다. 이 세계와 그것에 속한 여섯 보조물들은 창조체 조화-협동의 학교들을 포옹하며, 그곳에서는 중앙우주와 초우주 둘 모두로부터 온 선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체 달성에 대한 가장 높은 차원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네바돈 강사들과 함께 협력한다.

생명운반자들의 일곱 번째 구체는 진화적 창조체 생명의 계시되지 않은 권역들에 전념하며, 마치 그것이 최극존재의 확대하는 사실화라는 조화우주적 철학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제 3 장. 생명 이식(移植)

생명은 우주들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생명운반자들이 불모지 행성들 위에 그것을 전수(傳受)해야만 한다. 생명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 위에 출현할 때 그들은 생명의 운반자라고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며 보호자들이다. 행성 생명의 모든 형태들이 유란시아에 실존하지는 않지만, 유란시아에 알려진 계층과 형태들의 모든 생명들은 이 아들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심도록 위임된 생명운반자들 집단은 대개 100명의 상급(上級) 운반자들, 100명의 보좌관들 그리고 1,000명의 보호관리자들로 구성된다. 생명운반자들이 실제적인 생명 원형질을 새로운 세계에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배정된 행성에 도착한 이후에 생명 수립의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그 전에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생명 원형들

species scheme. The manifold by-products of biologic evolution are all essential to the final and full function of the higher intelligent forms of life, notwithstanding that great outward disharmony may prevail from time to time in the long upward struggle of the higher creatures to effect the mastery of the lower forms of life, many of which are sometimes so antagonistic to the peace and comfort of the evolving will creatures.

36:2.18 (398.5) *Number Five World* is concerned wholly with life associated with mind. Each of its satellites is devoted to the study of a single phase of creature mind correlated with creature life. Mind such as man comprehends is an endowment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superimposed on the nonteachable or mechanical levels of mind by the agenc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life patterns are variously responsive to these adjutants and to the different spirit ministries operating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e capacity of material creatures to effect spirit response is entirely dependent on the associated mind endowment, which, in turn, has directionized the course of the biologic evolution of these same mortal creatures.

36:2.19 (399.1) *World Number Six* is dedicated to the correlation of mind with spirit as they are associated with living forms and organisms. This world and its six tributaries embrace the schools of creature co-ordination, wherein teachers from both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collaborate with the Nebadon instructors in presenting the highest levels of creature attainment in time and space.

36:2.20 (399.2) *The Seventh Sphere of the Life Carriers* is dedicated to the unrevealed domains of evolutionary creature life as it is related to the cosmic philosophy of the expanding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3. LIFE TRANSPLANTATION

36:3.1 (399.3) Life does not spontaneously appear in the universes; the Life Carriers must initiate it on the barren planets. They are the carriers, disseminators, and guardians of life as it appea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All life of the order and forms known on Urantia arises with these Sons, though not all forms of planetary life are existent on Urantia.

36:3.2 (399.4) The corps of Life Carriers commissioned to plant life upon a new world usually consists of one hundred senior carriers, one hundred assistants, and one thousand custodians. The Life Carriers often carry actual life plasm to a new world, but not always. They sometimes organize the life patterns after arriving on the planet of assignment in accordance with

들을 조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것이 유란시아의 행성 생명의 기원이었다.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물질적 원형들이 제공되었을 때, 생명운반자들은 생명이 없는 이 물질에 촉매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들 자신을 통하여 생명의 영 섬광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곧 불활성의 원형들은 살아있는 물질들이 된다.

생명의 섬광—생명의 신비—은 생명운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증여된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행위들을 감독하는 것이 사실이며, 생명 원형질 자체를 조직하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근본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이는 우주 어머니 영이다. 육체에 생기를 주고 마음의 전조를 가져오는 에너지 섬광은 무한한 영의 창조 딸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증여에 있어서 생명운반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본성들을 전혀 전달하지 않으며, 생명의 새로운 계층들이 계획되는 그 구체들에서도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단지 생명의 섬광을 시작하고 전달할 뿐이며, 정해진 계획들과 원형들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명세들에 따라서 물질의 필요한 변혁을 시작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실존하는 물질적 계층의 그렇지 않다면 불활성인 요소들을 동요하고, 조직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촉매 현존이다.

행성 무리단에 속한 생명운반자들에게는 행성의 시간으로 약 50만 년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수립하도록 어떤 특정 기간이 주어져 있다. 이 기간의 만료. 행성 생명의 특정한 발전적 달성에 의해 표시되는, 그때에는 그들은 이식(移植)하는 수고를 마치며, 그 후에는 그 행성의 생명에게 새롭거나 추가적인 어떤 것을 추가시키지 않는다.

생명 수립과 필사 지위의 인간 창조체들의 창발 사이의 시대들 동안,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환경을 조종하도록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호의적으로 유도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하는 일이다.

새로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운반자들이 의지, 도덕적 결단과 영적 선택을 가진 존재를 창출하는 일에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때에 그곳에서 그들의 일이 종료된다.—그들은 종료되었다. 그들은 진화하는 생명을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 이 시점 이후로 살아있는 물체들의 진화는 이미 전해졌고 수립된, 행성 생명 공식들과 원형들인, 선천적인 본성과 성향의 자질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의지로 실험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적 창조체들을 지배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formulas previously approved for a new adventure in life establishment. Such was the origin of the planetary life of Urantia.

36:3.3 (399.5) When, in accordance with approved formulas, the physical patterns have been provided, then do the Life Carriers catalyze this lifeless material, imparting through their persons the vital spirit spark; and forthwith do the inert patterns become living matter.

36:3.4 (399.6) The vital spark — the mystery of life — is bestowed through the Life Carriers, not by them. They do indeed supervise such transactions, they formulate the life plasm itself, but it is the Universe Mother Spirit who supplies the essential factor of the living plasm. From the Creativ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comes that energy spark which enlivens the body and presages the mind.

36:3.5 (399.7) In the bestowal of life the Life Carriers transmit nothing of their personal natures, not even on those spheres where new orders of life are projected. At such times they simply initiate and transmit the spark of life, start the required revolutions of matter in accordance with the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specifications of the ordained plans and patterns. Life Carriers are living catalytic presences which agitate, organize, and vitalize the otherwise inert elements of the material order of existence.

36:3.6 (400.1) The Life Carriers of a planetary corps are given a certain period in which to establish life on a new world, approximately one-half million years of the time of that planet. At the termination of this period, indicated by certain developmental attainments of the planetary life, they cease implantation efforts, and they may not subsequently add anything new or supplemental to the life of that planet.

36:3.7 (400.2) During the ages intervening between life establishment and the emergence of human creatures of moral status, the Life Carriers are permitted to manipulate the life environment and otherwise favorably directionize the course of biologic evolution. And this they do for long periods of time.

36:3.8 (400.3) When the Life Carriers operating on a new world have once succeeded in producing a being with will, with the power of moral decision and spiritual choice, then and there their work terminates — they are through; they may manipulate the evolving life no further. From this point forward the evolution of living things must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endowment of the inherent nature and tendencies which have already been imparted to, and established in, the planetary life formulas and patterns. The Life Carriers are not permitted to experiment or to interfere with will; they are not allowed to dominate or arbitrarily

행성영주가 도착함에 따라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두 명의 상급 운반자들과 열 두 보호관리자들은, 일시적인 포기 서약을 함으로써, 생명 원형질의 더 나아간 발전과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행성에 충고자들로서 무기한 자원할 수 있다. 그러한 두 아들들과 그들의 열 두 연관-동료들이 현재에도 유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 4 장. 멜기세덱 생명운반자

네바돈 전역을 통하여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모든 지역체계에는 멜기세덱들이 생명운반자들의 역할을 담당해 온 단 하나의 구체가 존재한다. 이 거주지는 체계 아(亞)중간(中間) 세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 각각에는 물질적으로 변형된 멜기세덱 아들이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선택된 딸과 짝을 짓는다. 그러한 아(亞)중간 세계들의 어머니 이브들은 관할 체계 본부로부터 파견되며, 체계 주권자가 자기 구체에 있는 물질 딸들에게 제시한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지정된 멜기세덱 생명운반자에 의해 선택된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와 물질 딸의 자손들은 아(亞)중간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천상(天上)의 창조체들인 그러한 종족의 멜기세덱 아버지는 그의 독특한 생명 기능의 행성을 결국에는 떠나며, 우주 존재들의 이 특별한 계층인 어머니 이브도 역시 행성 자손의 일곱 번째 세대가 출현할 때 떠난다. 그때에는 그러한 세계의 감독이 그녀의 딸 아들에게 지위진다.

아(亞)중간 창조체들은 그들이 표준시간으로 1,00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장엄한 세계에서 살며 존재들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 후에 그들은 세라핌천사의 운송에 의해 옮겨진다. 아(亞)중간자들은 그 이후부터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세라핌천사 안에 들도록 준비하면서 그들이 거치는 비(非)물질화 기법이 그들로부터 번식 특권을 언제까지나 제거시키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의 현재 지위는 필사 또는 불멸이라고 간주하기가 심히 어려우며, 그들은 확실하게 인간적 또는 신성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다. 이 창조체들에는 조절자가 거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들을 필사 존재로 볼 수 없다; 어떤 아(亞)중간자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바돈에서 태어난 모든 아(亞)중간자들이 오늘날 살아 있으며, 그들이 태어난 세계들에서, 어떤 중간적인 구체에서, 또는 최종자 집단 세계의 구원자별 아(亞)중간 구체에서 기능하고 있다.

최종자의 구원자별 세계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은, 연관된 어머니 이브들과 마찬가지로,

influence moral creatures.

36:3.9 (400.4) Upon the arrival of a Planetary Prince they prepare to leave, though two of the senior carriers and twelve custodians may volunteer, by taking temporary renunciation vows, to remain indefinitely on the planet as advisers in the matter of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life plasm. Two such Sons and their twelve associates are now serving on Urantia.

4. MELCHIZEDEK LIFE CARRIERS

36:4.1 (400.5) In every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throughout Nebadon there is a single sphere whereon the Melchizedeks have functioned as life carriers. These abodes are known as the system *midsonite* worlds, and on each of them a materially modified Melchizedek Son has mated with a selected Daughter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The Mother Eves of such midsonite worlds are dispatched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of jurisdiction, having been chosen by the designated Melchizedek life carrier from among the numerous volunteers who respond to the call of the System Sovereign addressed to the Material Daughters of his sphere.

36:4.2 (400.6) The progeny of a Melchizedek life carrier and a Material Daughter are known as *midsoniters*. The Melchizedek father of such a race of supernal creatures eventually leaves the planet of his unique life function, and the Mother Eve of this special order of universe beings also departs upon the appearance of the seventh generation of planetary offspring. The direction of such a world then devolves upon her eldest son.

36:4.3 (400.7) The midsonite creatures live and function as reproducing beings on their magnificent worlds until they are one thousand standard years of age; whereupon they are translated by seraphic transport. Midsoniters are nonreproducing beings thereafter because the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which they pass through in preparation for enseraphimizing forever deprives them of reproductive prerogatives.

36:4.4 (400.8) The present status of these beings can hardly be reckoned as either mortal or immortal, neither can they be definitely classified as human or divine. These creatures are not Adjuster indwelt, hence hardly immortal. But neither do they seem to be mortal; no midsoniter has experienced death. All midsoniters ever born in Nebadon are alive today, functioning on their native worlds, on some intervening sphere, or on the Salvington midsonite sphere in the finaliters' group of worlds.

36:4.5 (401.1) *The Salvington Worlds of the Finaliters.*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as well as

체계 아(亞)중간 구체체들로부터, 그들의 자손들 역시 모이게 운명되어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최종자 세계들로 간다.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일곱 1차 세계들의 다섯 번째 집단이 최종자들의 네바돈 세계들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과 물질 딸들의 자녀들은 최종자의 일곱 번째 세계, 구원자별 아(亞)중간 구체에서 산다.

최종자들의 일곱 1차 세계들의 위성들은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초우주와 중앙우주의 개인성들의 집합장소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멜기세덱 대학을 포함하는 490개 세계들의 문화세계들과 훈련 구체들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학교들과 수많은 제한지대들이 있다. 이것은 최종자들의 관할 하에 있는 49개 구체들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아(亞)중간 창조체들의 목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개인성들이 우주 진화에 있어서 어떤 미래적 결국 생겨짐을 준비하면서 일곱 번째 최종자 세계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亞)중간자 종족들에 관한 우리들의 질문은 항상 최종자들을 참조한다, 그리고 최종자들은 그들의 피보호자의 운명에 대한 토론을 항상 거절한다. 아(亞)중간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불확실성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르본톤에 있는 각각의 지역우주가 이 신비스러운 존재들의 그러한 축적된 집단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멜기세덱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아(亞)중간자 자녀들이 언젠가는 궁극자 하느님으로부터 아(亞)절대성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 5 장. 일곱 보조 마음-영(靈)

원시 세계들에서 유기체 진화과정을 조절하는 것, 진화가 왜 우연한 현상이 아니고 의도적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현존이다. 이 보조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 지능(知性) 생명의 보다 낮은 계층들에게로 확장하는 무한한 영의 마음 사명활동의 그 기능을 의미한다.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들이며 영역들의 물질적 마음들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 사명활동을 이룬다.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이 현시되면, 이들 영들이 다양하게 기능한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이름들로 불린다: 직관, 납득, 용기, 지식, 조언, 경배, 그리고 지혜이다. 이 마음-영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 안으로 서로 다른 차

the associated Mother Eves, go from the system midsonite spheres to the finaliters'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where their offspring are also destined to forgather.

36:4.6 (401.2) It should be explained in this connection that the fifth group of seven primary world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Nebadon worlds of the finaliters. The children of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and the Material Daughters are domiciled on the seventh world of the finaliters, the Salvington midsonite sphere.

36:4.7 (401.3) The satellites of the seven primary worlds of the finaliters are the rendezvou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who may be executing assignments in Nebadon. While the ascending mortals go about freely on all of the cultural worlds and training spheres of the 490 worlds comprising the Melchizedek University, there are certain special schools and numerous restricted zones which they are not permitted to enter.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forty-nine spher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inaliters.

36:4.8 (401.4) The purpose of the midsonite creatures is not at present known, but it would appear that these personalities are forgathering on the seventh finaliter world in preparation for some future eventuality in universe evolution. Our inquiries concerning the midsonite races are always referred to the finaliters, and always do the finaliters decline to discuss the destiny of their wards. Regardless of our uncertainty as to the future of the midsoniters, we do know that every local universe in Orvonton harbors such an accumulating corps of these mysterious beings. It is the belief of the Melchizedek life carriers that their midsonite children will some day be endowed with the transcendental and eternal spirit of absonity by God the Ultimate.

5.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36:5.1 (401.5) It is the presence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n the primitive worlds that conditions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that explains why evolution is purposeful and not accidental. These adjutants represent that function of the mind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which is extended to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t life through the operations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adjutants are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constitute her personal ministry to the material minds of the realms. Wherever and whenever such mind is manifest, these spirits are variously functioning.

36:5.2 (401.6)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called by names which are the equivalents of the following designations: intuition, understanding, courage, knowledge, counsel, worship, and

별적 충동으로 그들의 영향을 보내며, 각각은, 기능을 위해 그 동료들이 접수와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는 정도와는 아주 별도로, 현시활동을 위해 접수-작용인 접수성 수용능력을 찾는다.

생명운반자 본부세계의 보조 영들의 중앙 거점들은 어떤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지적 상태의 주어진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든지 보조자들의 마음 기능의 범위와 본질특성들을 생명운반자 감독자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이 생명-마음 정착들은 처음 다섯 보조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마음 기능의 완전한 지표이다. 그러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보조 영들—경배와 지혜—에 대하여서 이 중앙 거점들은 단지 질적인 기능만을 기록한다. 경배의 보조자와 지혜의 보조자의 양적인 활동성은, 구원자별에 있는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즉각적인 현존 안으로 등록되며, 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적 체험이 된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항상 생명운반자들과 동행하여 새로운 행성으로 간다. 그러나 그들은 실존개체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순환 회로들과 더 유사하다. 일곱 우주 보조자들의 영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우주 현존과 동떨어진 개인성들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의식 차원이고 그들의 창조 어머니의 행동과 현존에 항상 종속된다.

이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적당하게 표현할만한 단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체험적 마음의 보다 낮은 차원들의 사명활동자들이며, 진화적 달성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직관의 영—신속한 감지, 원시적인 물리적 그리고 선천적 반사 본능, 방향성이 있고 또한 그 밖의 모든 마음 창조체들의 자아-보존적인 자질; 보조자들 중에서 동물 생명의 하급 계층들에서 아주 널리 기능하는 유일한 보조자이며, 기계적 마음의 학습능력이 없는 차원과 광범위한 기능적 접촉을 만드는 유일한 보조자.

2. 납득의 영—조화-협동의 충동, 자발적이며 명백하게 자동적인 관념들의 관계적-연합. 이것은 획득된 지식을 조화-협동하는 재능, 즉 신속한 추론, 재빠른 판단, 그리고 즉각적 결정의 현상이다.

3. 용기의 영—충성 자질—개인 존재들 안에서, 성격 획득의 기본, 도덕적 정력과 영적 용감성의 지적 근원. 사실에 의해 깨우쳐지고 진리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이것은 지적이고 양심적인 자아-방향결정의 경로에 따라 진화적 상승의 충동을 일으키는 비결이 된다.

4. 지식의 영—호기심—모험과 발견의 모체(母

wisdom. These mind-spirits send forth their influence into all the inhabited worlds as a differential urge, each seeking receptivity capacity for manifestation quite apart from the degree to which its fellows may find reception and opportunity for function.

36:5.3 (401.7) The central lodgments of the adjutant spirits on the Life Carrier headquarters world indicate to the Life Carrier supervisors the extent and quality of the mind function of the adjutants on any world and in any given living organism of intellect status. These life-mind emplacements are perfect indicators of living mind function for the first five adjutants. But with regard to the sixth and seventh adjutant spirits — worship and wisdom — these central lodgments record only a qualitative function. The quantitative activity of the adjutant of worship and the adjutant of wisdom is registered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on Salvington, being a personal experienc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36:5.4 (402.1)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lways accompany the Life Carriers to a new planet, but they should not be regarded as entities; they are more like circuits. The spirits of the seven universe adjutants do not function as personalities apart from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they are in fact a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Divine Minister and are always subordinate to the action and presence of their creative mother.

36:5.5 (402.2) We are handicapped for words adequately to designate these seven adjutant mind-spirits. They are ministers of the lower levels of experiential mind, and they may be described, in the order of evolutionary attainment, as follows:

36:5.6 (402.3) 1. *The spirit of intuition* — quick perception, the primitive physical and inherent reflex instincts, the directional and other self-preservative endowments of all mind creations; the only one of the adjutants to function so largely in the lower orders of animal life and the only one to make extensive functional contact with the nonteachable levels of mechanical mind.

36:5.7 (402.4) 2. *The spirit of understanding* — the impulse of co-ordination, the spontaneous and apparently automatic association of ideas. This is the gift of the co-ordination of acquired knowledge, the phenomenon of quick reasoning, rapid judgment, and prompt decision.

36:5.8 (402.5) 3. *The spirit of courage* — the fidelity endowment — in personal beings, the basis of character acquirement and the intellectual root of moral stamina and spiritual bravery. When enlightened by facts and inspired by truth, this becomes the secret of the urge of evolutionary ascension by the channels of intelligent and conscientious self-direction.

36:5.9 (402.6) 4. *The spirit of knowledge* — the

體), 과학적 영; 용기의 영과 조언의 영의 안내자이며 신실한 연관-동료이다; 용기의 자질들을 유용하고 진보적인 성장의 길로 지도하는 충동.

5. 조언의 영—사회적 충동, 종(種) 협동 자질; 그들의 동료들과 협동을 이루는 의지 창조체들의 능력; 다소 하등 창조체들 사이의 군생(群生) 본능의 기원.

6. 경배의 영—종교적 자극, 마음 창조체들을 필사자 실존에서의 두개의 기본적인 등급으로 분류하는 최초의 차별적 충동. 경배의 영은 그와 관계적-연합된 창조체를 마음 자질이 있으나 혼이 없는 창조체인 동물로부터 언제까지나 구별한다. 경배는 영적-상승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는 상징이다.

7. 지혜의 영—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의 계층적으로, 그리고 진보적으로 진화하여 전진하려는 선천적 경향. 이것은 보조자들에서 가장 높으며, 영 조화-협동자이자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활동을 표현하는 영이다. 이 영은 실존의 상승 규모의 실천적이고 효력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마음 창조체들의 그 태생적 충동의 비밀이다; 살아있는 것들의 이 재능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생존하려는 능력을 그리고, 생존에서, 관련된 유기체의 마음 안에서 나머지 여섯 정신적 생명활동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그 각각의 모든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과거 체험과 현재 기회들의 조화-협동을 활용하려는 것을 설명한다. 지혜는 지적 실행의 절정(絶頂)이다. 지혜는 순수하게 정신적이고 도덕적 실존의 목표이다.

보조 마음-영들은 체험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될 수 없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진화하며, 동물 계층들 안에 있는 처음 다섯가지의 기능은 인간 지능에서와 같은 모든 일곱 보조자의 기능에서 어느 정도까지 필수적이다. 이 동물 관계는 보조자들을 인간 마음으로서 더욱 실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만든다; 따라서 동물은 사람의 육체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적 진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이 우주의 생명이 없는 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이 마음-보조자들은 지능적 지위의 창조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마음 순환회로들에서 매우 귀중한 봉사를 수행하며, 전(前) 보조자 마음 차원들, 학습 불가능 또는 기계적 마음의 차원들의 통제자들 그리고 지도자들로 또한 봉사는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효력적인 협동자이기도 하다.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나타나기 전의 살아있는 마음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이 사명을 배우는 권역이다. 신성(神性)을 인지하고 신(神)을

curiosity-mother of adventure and discovery, the scientific spirit; the guide and faithful associate of the spirits of courage and counsel; the urge to direct the endowments of courage into useful and progressive paths of growth.

36:5.10 (402.7) 5. *The spirit of counsel* — the social urge, the endowment of species co-operation; the ability of will creatures to harmonize with their fellows; the origin of the gregarious instinct among the more lowly creatures.

36:5.11 (402.8) 6. *The spirit of worship* — the religious impulse, the first differential urge separating mind creatures into the two basic classes of mortal existence. The spirit of worship forever distinguishes the animal of its association from the soulless creatures of mind endowment. Worship is the badge of spiritual-ascension candidacy.

36:5.12 (402.9) 7. *The spirit of wisdom* — the inherent tendency of all moral creatures towards orderly and progressive evolutionary advancement. This is the highest of the adjutants, the spirit co-ordinator and articulator of the work of all the others. This spirit is the secret of that inborn urge of mind creatures which initiates and maintains the practical and effective program of the ascending scale of existence; that gift of living things which accounts for their inexplicable ability to survive and, in survival, to utilize the co-ordination of all their past experience and present opportunities for the acquisition of all of everything that all of the other six mental ministers can mobilize in the mind of the organism concerned. Wisdom is the acme of intellectual performance. Wisdom is the goal of a purely mental and moral existence.

36:5.13 (403.1) The adjutant mind-spirits experientially grow, but they never become personal. They evolve in function, and the function of the first five in the animal orders is to a certain extent essential to the function of all seven as human intellect. This animal relationship makes the adjutants more practically effective as human mind; hence animals are to a certain extent indispensable to man's intellectual as well as to his physical evolution.

36:5.14 (403.2) These mind-adjutants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re related to creature life of intelligence status much as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re related to the nonliving forces of the universe. They perform invaluable service in the mind circuits on the inhabited worlds and are effective collaborators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who also serve as controllers and directors of the preadjutant mind levels, the levels of nonteachable or mechanical mind.

36:5.15 (403.3) Living mind, prior to the appearance of capacity to learn from experience, is the ministry domai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경배하는 능력을 성취하기 이전의 창조체 마음은 보조 영들의 독자적인 권역이다. 창조체 지능의 영적 반응이 나타남으로, 것처럼 창조되는 마음들은 즉시 초(超)마음으로 되며, 순간적으로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영 순환주기를 안으로 회로연결이 이루어진다.

보조 마음-영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성령, 개인적 현존의 영의 다양하고도 매우 높은 영적인 기능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진화적인 사람에게 바로 이 영의 출현보다 기능적으로 앞서며 그것을 예비한다. 보조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역우주의 살아있는 물질적 창조체들과의 다양한 접촉 그리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지만, 전(前)개인적 차원들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최극존재 안에서 반항하지 않는다.

비(非)영적 마음은 영-에너지 현시활동이거나 또는 물리적-에너지 현상이다. 인간 마음, 개인적 마음조차도 영 정체화구현을 떠나서는 생존하는 본질특성이 없다. 마음은 하나의 신성 증여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 통찰력 없이 기능할 때 그리고 그것이 생존을 갈망하고 경배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불멸이 아니다.

제 6 장. 살아있는 기세

생명은 기능구조적인 동시에 활력적—물질적이며 영적—이다. 유란시아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식물 그리고 동물 생명의 원형질 형태들에 대한 납득에 있어서 계속 진보를 이루겠지만, 그들은 결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생명은 모든 에너지 현시활동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물리적 창조체들의 물질적 생명이라도 물질 속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적 사물들은 독립적인 실존을 누릴 수 있겠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발생된다. 마음은 오직 이전-실존 마음으로부터만 유래될 수 있다. 영은 영 선조(先祖)들로부터만 기원된다. 창조체가 생명의 형태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직 창조자 개인성 또는 창조적 기세만이 활성화시키는 살아있는 섬광을 제공할 수 있다.

생명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물질적 형태들 또는 물리적 원형들을 조직할 수 있지만, 영은 생명의 최초 섬광을 제공하고 마음 자질을 증여한다. 생명운반자들이 그들의 구원자별 세계들에서 조직하는 실험적 생명의 살아있는 형태들이라도 번식 힘은 항상 결여되어 있다. 생명 공식들과 생명의 원형들이 정확하게 조합되고 알맞게 조직화 되었을 때, 생명운반자의 현존은 생명을 시작시기에 충분하지만, 그러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필수적인 두 속성들—마음 자질과 번식 힘—이 결여되어 있다. 동물 마음과 인간 마음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선물인데, 일곱 보

Creature mind, before acquiring the ability to recognize divinity and worship Deity, is the exclusive domain of the adjutant spirits. With the appearance of the spiritual response of the creature intellect, such created minds at once become superminded, being instantly encircled in the spirit cycle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36:5.16 (403.4)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in no manner directly related to the diverse and highly spiritual function of the spirit of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the Holy Spirit of the inhabited worlds; but they are functionally antecedent to, and preparatory for, the appearance of this very spirit in evolutionary man. The adjutants afford the Universe Mother Spirit a varied contact with, and control over, the material living creatures of a local universe, but they do not repercuss in the Supreme Being when acting on prepersonality levels.

36:5.17 (403.5) Nonspiritual mind is either a spirit-energy manifestation or a physical-energy phenomenon. Even human mind, personal mind, has no survival qualities apart from spirit identification. Mind is a divinity bestowal, but it is not immortal when it functions without spirit insight, and when it is devoid of the ability to worship and crave survival.

6. LIVING FORCES

36:6.1 (403.6) Life is both mechanistic and vitalistic — material and spiritual. Ever will Urantia physicists and chemists progres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otoplasmic forms of vegetable and animal life, but never will they be able to produce living organisms. Life is something different from all energy manifestations; even the material life of physical creatures is not inherent in matter.

36:6.2 (403.7) Things material may enjoy an independent existence, but life springs only from life. Mind can be derived only from pre-existent mind. Spirit takes origin only from spirit ancestors. The creature may produce the forms of life, but only a creator personality or a creative force can supply the activating living spark.

36:6.3 (404.1) Life Carriers can organize the material forms, or physical patterns, of living beings, but the Spirit provides the initial spark of life and bestows the endowment of mind. Even the living forms of experimental life which the Life Carriers organize on their Salvington worlds are always devoid of reproductive powers. When the life formulas and the vital patterns are correctly assembled and properly organized, the presence of a Life Carrier is sufficient to initiate life, but all such living organisms are lacking in two essential attributes — mind endowment and reproductive powers.

조 마음-영들을 통하여 기능한다, 반면에 재생산할 수 있는 창조체 능력은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개시된 선조 생명 원형질에게 우주 영이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생명운반자들이 생명의 원형들을 설계하고, 그들이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조직한 후에, 추가적인 현상이 반드시 발생되어야만 한다. “생명의 숨결”이 생명 없는 이 형체들 속으로 주입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섬광을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입된 생명을 다 쓰면, 그러면 다시 남아있는 물질적 몸체는 죽은 몸체가 된다. 증여된 생명이 소진되었을 때, 몸체는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그들이 그러한 에너지-물질의 가시적인 관계적-연합을 이끌어 내는 생명 자질수여를 위한 과도기 매체로서 봉사하도록 빌려졌던, 물질적 우주의 품속으로 되돌아간다.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식물과 동물에게 증여된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이 죽었을 때 생명운반자들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러한 몸체로부터 떠나가는 생명은 정체성도 없고 개인성도 없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지 않는다. 그것이 실존하던 동안 그리고 그것이 물질로 된 몸체 속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에너지 진화를 겪어가며 우주의 조화우주기체의 한 부분으로서만 살아 남는다; 그것은 개별적 생명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필사 창조체의 생존은 필사자 마음속에 있는 불멸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우리는 생명을 “에너지”와 “기체”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둘 모두 아니다. 기체-에너지는 다양한 중력 반응이다; 생명은 그렇지 않다. 원형들은 모든 중력-반응 의무들을 이미 다 마친 에너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중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생명은, 그렇게, 어떤 원형들-그렇지 않았다면 분리된 체계인—물질적, 마음적 또는 영적 에너지 배열의 생기(生氣)를 구성한다.

진화하는 행성들에는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는, 생명의 합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생명운반자들의 전기화학적 공식의 물리적 조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생명-활성화 섬광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영에 의해 흐르는 것을 안다. 주(主) 영들이, 모든 창조체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의 강의 칠중(七重) 통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행성에 생명이 증여되는 최초의 에피소드에 감독하는 주(主) 영이 참여하는 그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하기로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역시 새로운 세계에서의 이 생명 개시에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 어머니 영이 생명 없는 원형들

Animal mind and human mind are gift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unctioning through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while creature ability to reproduce is the specific and personal impartation of the Universe Spirit to the ancestral life plasm inaugurated by the Life Carriers.

36:6.4 (404.2) When the Life Carriers have designed the patterns of life, after they have organized the energy systems, there must occur an additional phenomenon; the “breath of life” must be imparted to these lifeless forms. The Sons of God can construct the forms of life, but it is the Spirit of God who really contributes the vital spark. And when the life thus imparted is spent, then again the remaining material body becomes dead matter. When the bestowed life is exhausted, the body returns to the bosom of the material universe from which it was borrowed by the Life Carriers to serve as a transient vehicle for that life endowment which they conveyed to such a visible association of energy-matter.

36:6.5 (404.3) The life bestowed upon plants and animals by the Life Carriers does not return to the Life Carriers upon the death of plant or animal. The departing life of such a living thing possesses neither identity nor personality; it does not individually survive death. During its existence and the time of its sojourn in the body of matter, it has undergone a change; it has undergone energy evolution and survives only as a part of the cosmic forces of the universe; it does not survive as individual life. The survival of mortal creatures is wholly predicated on the evolvment of an immortal soul within the mortal mind.

36:6.6 (404.4) We speak of life as “energy” and as “force,” but it is really neither. Force-energy is variously gravity responsive; life is not. Pattern is also nonresponsive to gravity, being a configuration of energies that have already fulfilled all gravity-responsive obligations. Life, as such, constitutes the animation of some pattern-configured or otherwise segregated system of energy — material, mindal, or spiritual.

36:6.7 (404.5) There are some things connected with the elaboration of life on the evolutionary planets which are not altogether clear to us. We fully comprehend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electrochemical formulas of the Life Carriers, but we do not wholly understand the nature and source of the *life-activation spark*. We know that life flows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and by the Spirit. It is more than possible that the Master Spirits are the sevenfold channel of the river of life which is poured out upon all creation. But we do not comprehend the technique whereby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participates in the initial episode of life bestowal on a new planet. The Ancients of Days, we are confident, also have some part in this inauguration of life on a new

들을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활성화된 원형질에게 유기체적 번식의 특권을 나누어 준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최극 창조자들로 정의되는, 칠중 하느님의 차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단순하게 개념이 아버지 안에 선천적이고, 아들 안에서의 표현이며, 영 안에서의 생명 실현화라는 것—보다 더 알지 못한다.

[감독하는 계시무리단의 멜기세덱 우두머리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능력으로 유란시아에 관찰자로 머물고 활동하는 보론다덱 아들에 의해 쓰여 짐.]

world, but we are wholly ignorant of the nature thereof. We do know that the Universe Mother Spirit actually vitalizes the lifeless patterns and imparts to such activated plasm the prerogatives of organismal reproduction. We observe that these three are th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sometimes designated as the Supreme Creators of time and space; but otherwise we know little more than Urantia mortals — simply that concept is inherent in the Father, expression in the Son, and life realization in the Spirit.

^{36:6.8 (405.1)} [Indited by a Vorondadek Son stationed on Urantia as an observer and acting in this capacity by request of the Melchizedek Chief of the Supervising Revelatory Corps.]

제 37 편 지역우주의 개인성

⇨ 036

유랜시아 책

038 ⇨

부 II. 지역우주

제 37 편 지역우주의 개인성

색션

소개

- 제 1 장. 우주 도움자
- 제 2 장. 찬란한 저녁별
- 제 3 장. 천사장
- 제 4 장. 지고(至高)보좌관
- 제 5 장. 높은 위원
- 제 6 장. 천상의 감독자
- 제 7 장. 맨션세계 교사
- 제 8 장. 배정된 높은 영 계층
- 제 9 장. 지역우주의 영구 시민
- 제 10 장. 다른 지역우주 집단

소개

네바돈 안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꼭대기에는 창조자이자 주(主)아들, 미가엘. 우주의 아버지이자 주권자가 있다. 신성에서 조화-협동이신 분이며 창조적 속성에서 보완이신 분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그리고 이 창조자들은 참으로 글자 그대로의 감각에서, 네바돈의 모든 토착 창조체들의 아버지-아들과 그리고 영-어머니이다.

앞에 있는 글들은 아들관계의 창조된 계층들을 다루었다;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사명을 베푸는 영들과 아들관계의 상승하는 계층들에 대해 묘사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글은 주로 중간적인 집단, 우주 도움자들을 다루겠지만, 네바돈에 위치해 있는 보다 높은 영들 그리고 지역우주에서의 영구 시민관계의 계층들의 일정 부분에 대해 간략한 고찰도 제공할 것이다.

PAPER 37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Universe Aids
- 2. The Brilliant Evening Stars
- 3. The Archangels
- 4. Most High Assistants
- 5. High Commissioners
- 6. Celestial Overseers
- 7. Mansion World Teachers
- 8. Higher Spirit Orders of Assignment
- 9.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 10. Other Local Universe Groups

INTRODUCTION

37:0.1 (406.1) AT THE head of all personality in Nebadon stands the Creator and Master Son, Michael, the universe father and sovereign. Co-ordinate in divinity and complemental in creative attributes i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And these creators are in a very literal sense the Father-Son and the Spirit-Mother of all the native creatures of Nebadon.

37:0.2 (406.2) Preceding papers have dealt with the created orders of sonship; succeeding narratives will portray the ministering spirits and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This paper is chiefly concerned with an intervening group, the Universe Aids, but it will also give brief consideration to certain of the higher spirits stationed in Nebadon and to certain of the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in the local universe.

제 1 장. 우주 도움자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독특한 계층들 중 많은 부분은 계시되지 않지만, 이 글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주 도움자들은 다음의 일곱 계층들을 포함 한다:

1. 빛나는 새벽별
2. 찬란한 저녁별
3. 천사장
4. 지고자 보좌관
5. 높은 위원
6. 천상(天上)의 감독자
7. 맨션세계 선생

우주 도움자들의 첫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빛나는 새벽별들 경우에는, 각 지역우주마다 꼭 한 명씩밖에 없으며, 그는 지역우주에 있어서 모든 토착 창조체들 중에서 첫-탄생이다. 우리 우주의 빛나는 새벽별은 구원자별의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다. 그는 네바돈 전체의 우두머리 집행자이며, 주권자 아들의 개인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의 창조적 배우자를 위한 대변자로서 기능한다.

네바돈의 초기 시절에,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창조 영과 함께 아주 외롭게 일하였다. 우주가 성장하고 행정-관리적 문제들이 증가되면서, 그에게는 미(未)계시 보좌관들로 구성된 개인 참모진이 제공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집단은 저녁별들의 네바돈 무리단이 창조로서 증강되었다.

제 2 장.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이 창조체들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능력으로 봉사하지만 주로 지역우주 최고집행자인 가브리엘의 연락 사무관들로서 봉사한다. 네바돈에 있는 각 별자리와 체계의 수도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들 존재들이 그의 대표자로서 기능한다.

네바돈의 최고집행자로서의 가브리엘은 구원자별의 대부분의 비밀회의에서 직권 상 의장이거나 또는 관찰자 지위를 지낸바 있으며, 1,000개에 달하는 이 회의들이 동시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가브리엘을 대표 한다; 그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들 특급천사들이 이 한계들을 보상해 준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무리단을 대신하여 비슷한 봉사를 수행한다.

행정-관리적 임무들에 직접 관여하지만, 가브

1. THE UNIVERSE AIDS

37:1.1 (406.3) Many of the unique orders generally grouped in this category are unrevealed, but as presented in these papers, the Universe Aids include the following seven orders:

- 37:1.2 (406.4) 1. Bright and Morning Stars.
- 37:1.3 (406.5) 2. Brilliant Evening Stars.
- 37:1.4 (406.6) 3. Archangels.
- 37:1.5 (406.7) 4. Most High Assistants.
- 37:1.6 (406.8) 5. High Commissioners.
- 37:1.7 (406.9) 6. Celestial Overseers.
- 37:1.8 (406.10) 7. Mansion World Teachers.

37:1.9 (406.11) Of the first order of Universe Aids, the Bright and Morning Stars, there is just one in each local universe, and he is the first-born of all creatures native to a local universe.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our universe is known as Gabriel of Salvington. He is the chief executive of all Nebadon, functioning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overeign Son and as spokesman for his creative consort.

37:1.10 (406.12) During the earlier times of Nebadon, Gabriel worked quite alone with Michael and the Creative Spirit. As the universe grew and administrative problems multiplied, he was provided with a personal staff of unrevealed assistants, and eventually this group was augmented by the creation of the Nebadon corps of Evening Stars.

2. THE BRILLIANT EVENING STARS

37:2.1 (407.1) These brilliant creatures were planned by the Melchizedeks and were then brought into being by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They serve in many capacities but chiefly as liaison officers of Gabriel, the local universe chief executive. One or more of these beings function as his representatives at the capital of every constellation and system in Nebadon.

37:2.2 (407.2) As chief executive of Nebadon, Gabriel is ex officio chairman of, or observer at, most of the Salvington conclaves, and as many as one thousand of these are often in session simultaneousl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represent Gabriel on these occasions; he cannot be in two places at the same time, and these superangels compensate for this limitation. They perform an analogous service for the corp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37:2.3 (407.3) Though personally occupied with

리엘은 찬란한 저녁별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위상의 우주 삶과 관련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그들은 그가 행성 여행을 할 때 항상 그와 함께 하며 그의 개인 대표자들로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각 행성들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때로 “주님의 천사”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과 모임 앞에서 빛나는 새벽별을 대표하기 위해 자주 유버사에 가지만, 그들이 오르본톤의 경계선 너머로 여행하는 일은 드물다.

찬란한 저녁별들은 독특한 이중적 계층이며, 일부는 창조된 존엄자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를 달성한 이들을 포용하고 있다. 이들 특급천사들의 네바돈 무리단은 지금 13,641명이다. 창조된 존엄자가 4,832명 있고, 반면에 이 고양된 임무의 목표를 달성한 8,809명의 상승하는 영들이 있다. 상승하는 이들 저녁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우주 생애를 세라핌천사로서 시작한다; 그 이외에는 창조체의 미(未)계시 차원들로부터 상승되었다. 이 높은 무리단은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지 않는 한, 달성 목표로서 상승 후보자들에게 결코 접근하지 않는다.

찬란한 저녁별들의 둘 모두의 유형은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일정 유형의 초(超)필사 물질적 존재들이 쉽게 볼 수 있다. 이 흥미롭고도 다재다능한 계층의 창조된 존재들은 그들의 개인적 현존과 관계없이 현시될 수 있는 영 기체를 소유한다.

이들 특급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가발리아인데, 네바돈에서 이 계층의 첫-탄생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의 승리를 거둔 증여로부터 돌아온 이후로, 가발리아는 상승하는 필사자 사명활동에 배치되어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지난 1,900년 동안 그의 연관-동료 갈란시아가 유지해 온 예루셈에 있는 본부에서, 그는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낸다. 갈란시아는 이 높은 상태를 달성한 상승하는 특급천사의 첫 번째이다.

많은 임무들에서 관례상 쌍으로 관계적-연합하는 외에, 찬란한 저녁별들은 어떠한 집단화 또는 일단의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임무들에 광범위하게 배정되지는 않지만, 그 일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결코 단독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쌍으로—하나는 창조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하는 저녁별—기능한다.

저녁별들의 높은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미가엘이 그의 유란시아에 증여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동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보날 증여 아들들이 그들의 행성 임무를 수행할 때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두 특급천사들은, 이 일들에 배정된 천사장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공동 지휘관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명에 올라있는 개인성들이다. 의의(意義)깊은 시간과 시대에, 아보날 증여

administrative duties, Gabriel maintains contact with all other phases of universe life and affairs through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y always accompany him on his planetary tours and frequently go on special missions to the individual planets as his personal representatives. On such assignments they have sometimes been known as “the angel of the Lord.” They frequently go to Uversa to represen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before the courts and assemblies of the Ancients of Days, but they seldom journey beyond the confines of Orvonton.

37:2.4 (407.4)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re a unique twofold order, embracing some of created dignity and others of attained service. The Nebadon corps of these superangels now numbers 13,641. There are 4,832 of created dignity, while 8,809 are ascendant spirits who have attained this goal of exalted service. Many of these ascendant Evening Stars started their universe careers as seraphim; others have ascended from unrevealed levels of creature life. As an attainment goal this high corps is never closed to ascension candidates so long as a universe is not settled in light and life.

37:2.5 (407.5) Both types of Brilliant Evening Stars are easily visible to morontia personalities and certain types of supermortal material beings. The created beings of this interesting and versatile order possess a spirit force which can be manifested independently of their personal presence.

37:2.6 (407.6) The head of these superangels is Gavalia, the first-born of this order in Nebadon. Since the return of Christ Michael from his triumphant bestowal on Urantia, Gavalia has been assigned to the ascendant mortal ministry, and for the last nineteen hundred Urantia years his associate, Galantia, has maintained headquarters on Jerusem, where he spends about half of his time. Galantia is the first of the ascendant superangels to attain this high estate.

37:2.7 (407.7) No grouping or company organization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exists other than their customary association in pairs on many assignments. They are not extensively assigned on missions pertaining to the ascendant career of mortals, but when thus commissioned, they never function alone. They always work in pairs — one a created being, the other an ascendant Evening Star.

37:2.8 (407.8) One of the high duties of the Evening Stars is to accompany the Avonal bestowal Sons on their planetary missions, even as Gabriel accompanied Michael on his Urantia bestowal. The two attending superangels are the ranking personalities of such missions, serving as cocommanders of the archangels and all others assigned to these undertakings. It is the senior of

아들에게 “당신 형제의 일을 돌보소서.”라고 말하는 이는 이들 특급천사 지휘관의 선임자이다.

거주되는 세계의 증여이후시대, 또는 동이 트는 영적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 구성된 행성 무리단에게도 이 특급천사들과 비슷한 쌍들이 배정된다. 그러한 임무에 있어서 저녁별들은 영역의 필사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 아들들의 무리단 사이에서 연락이자 역할을 한다.

저녁별들의 세계들, 일곱 구원자별 세계들 중 여섯 번째 집단과 그들의 42개 종속 위성들은 관련한 저녁별들의 관리·행정에 배정되어 있다. 1차 일곱 세계들은 이 특급천사들 중 창조된 계층이 주관하는 반면, 종속된 위성들은 상승하는 저녁별들에 의해 관리·행정된다.

처음 세 개의 세계의 위성들은 지역우주의 영개인성들에게 전념된 교사 아들과 저녁별들의 학교로 바쳐져 있다. 그 다음 세 집단들은 상승하고 있는 필사자들의 훈련에 전념된 비슷한 공동 학교들이 차지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에 속한 종속적인 위성들은 교사 아들들, 저녁별들, 그리고 최종자의 삼원적 심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 특급천사들은 최종자 무리단의 지역우주 작업에 밀접하게 정체성을 확인되어 왔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교사 아들과 연관해 오고 있다. 최종자 작업 집단에 부속된 중력 메신저들과 저녁별들 사이에는 엄청난 힘과 중요성으로 이루어진 연락관이 존재한다. 일곱 번째 1차적 세계 자체는, 최극위 하느님 개인성의 초우주 현시활동이 완성된 창발이 됨에 따라 결과로서 일어나는 교사 아들들, 최종자 그리고 저녁별들 사이에서 얻어질, 어떤 미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미(未)계시 일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these superangel commanders who, at the significant time and age, bids the Avonal bestowal Son, “Be about your brother's business.”

37:2.9 (408.1) Similar pairs of these superangels are assigned to the planetary corps of Trinity Teacher Sons that functions to establish the postbestowal or dawning spiritual age of an inhabited world. On such assignments the Evening Stars serve as liaisons between the mortals of the realm and the invisible corps of Teacher Sons.

37:2.10 (408.2) *The Worlds of the Evening Stars.* The sixth group of seven Salvington worlds and their forty-two tributary satellites are assign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 seven primary worlds are presided over by the created orders of these superangels, while the tributary satellites are administered by ascendant Evening Stars.

37:2.11 (408.3) The satellites of the first three worlds are devoted to the schools of the Teacher Sons and the Evening Stars dedicated to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local universe. The next three groups are occupied by similar joint schools devoted to the training of ascending mortals. The seventh-world satellites are reserved for the triune deliberations of the Teacher Sons, the Evening Stars, and the finaliters. During recent times these superangels have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local universe work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nd they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the Teacher Sons. There exists a liaison of tremendous power and import between the Evening Stars and the Gravity Messengers attached to the finaliter working groups. The seventh primary world itself is reserved for those unrevealed matters which pertain to the future relationship that will obtain between the Teacher Sons, the finaliters, and the Evening Stars consequent upon the completed emergence of the super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제 3 장. 천사장

천사장들은 창조자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지역우주에서 많은 숫자로 탄생되어 있는 높은 영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이며, 가장 최근에 등록된 숫자를 보면 네바돈에 거의 800,000명이었다.

천사장들은 보통 가브리엘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은, 지역우주 개인성들 중 소수 집단의 하나이다. 그들은 어떤 방면으로도 우주의 일상적인 관리·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의 상승하는 생애를 촉진하는 일에 그리고 창조체 생존 업무에 전념한다. 보통은 빛나는 새벽별의 지도에 따르지 않지만, 천사장들은 때로 그의 권한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

3. THE ARCHANGELS

37:3.1 (408.4) Archangels are the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the highest type of high spirit being produced in large numbers in a local universe, and at the time of the last registry there were almost eight hundred thousand in Nebadon.

37:3.2 (408.5) Archangels are one of the few groups of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not norma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Gabriel. They are not in any manner concerned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being dedicated to the work of creature survival and to the furtherance of the ascending career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While not ordinarily subject to the direction

한, 너희의 세계에 생명을 이식한 것에 대한 서술에서 묘사된 어떤 활동행위로 예증된 바와 같이, 저녁별들과 같은 우주 도움자들에 해당하는 다른 존재들과 협동한다.

네바돈의 천사장 무리단은 이 계층의 첫-태생에 의해 지도되며, 조금 최근 시대에는 천사장들의 분과 본부가 유란시아에서 유지되어 왔다. 네바돈 바깥에서 온 학생 방문자들의 관심을 즉시 잡아끌고 있는 것은 이 보기 드문 사실이다. 우주 내부의 활동행위에 관한 그들의 초기 관찰에서는, 찬란한 저녁별들의 많은 상승 활동들이 지역체계의 수도, 사타니아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 그들은 특정한 천사장 활동들이 유란시아라 불리는 작고도 걸보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주세계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이 중여되었음의 계시와 그리고 즉각적으로 민감해지는 너희와 너희의 초라한 구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잇따라 일어난다.

너희는, 너희의 초라하고 혼동에 빠진 행성이 파라다이스상승 전체계획과 상관을 가지는 어떤 천사장 활동에서의 우주관리-행정과 지도에 대한 하나의 분과 본부가 되었다는 사실의 의의(意義)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가엘의 중여 세계위에 또 다른 상승 활동이 미래에 집중되어짐을 예감하며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주(主)의 개인적 약속에 엄청나고도 엄숙한 의미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천사장들은 아들관계의 아보날 계층의 봉사와 봉사사명에 배정되지만, 다양한 사명활동의 영들이 활동하는 모든 위상에서 광범위한 예비훈련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가는 파라다이스 중여 아들 각자마다 100명으로 된 하나의 무리단이 동행하며, 그 중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에게 배정된다. 만약에 치안법관 아들이 행성의 임시 통치자가 되어야만 할 때에는, 이 천사장들이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천상(天上)의 생명을 감독하는 우두머리들로서 활동한다.

파라다이스 아보날의 모든 행성 임무들에서, 재판 활동, 치안법관 임무, 또는 중여 육신화를 포함하든지 관계없이 두 명의 선임 천사장들은, 항상 개인 도움자로서 배정된다. 이 파라다이스 아들이 영역의 심판을 완결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등록하도록 불리울 때(소위 말하는 부활), 잠자고 있는 개인성들의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천사장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한 섭리시대 종결의 점호(點呼)가 수행 천사장에 의해 공표된다. 이분이 부활의 천사장이며, 때로는 "미가엘의 천사장"이라고 불린다.

천사장들의 세계들. 구원자별 세계들을 예위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archangels do sometimes function by his authority. They also collaborate with others of the Universe Aids, such as the Evening Stars, as is illustrated by certain transactions depicted in the narrative of life transplantation on your world.

37:3.3 (408.6) The archangel corps of Nebadon is directed by the first-born of this order, and in more recent times a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e archangels has been maintained on Urantia. It is this unusual fact that soon arrests the attention of extra-Nebadon student visitors. Among their early observations of intrauniverse transactions is the discovery that many ascendant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re directed from the capital of a local system, Satania. On further examination they discover that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are directed from a small and apparently insignificant inhabited world called Urantia. And then ensues the revelation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and their immediately quickened interest in you and your lowly sphere.

37:3.4 (409.1) Do you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your lowly and confused planet has become a divisional headquarters for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nd direction of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having to do with the Paradise ascension scheme? This undoubtedly presages the future concentration of other ascendant activities on the bestowal world of Michael and lends a tremendous and solemn import to the Master's personal promise, "I will come again."

37:3.5 (409.2) In general, the archangel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and ministry of the Avonal order of sonship, but not until they have passed through extensive preliminary training in all phases of the work of the various ministering spirits. A corps of one hundred accompanies every Paradise bestowal Son to an inhabited world, being temporarily assigned to him for the duration of such a bestowal. If the Magisterial Son should become temporary ruler of the planet, these archangels would act as the directing heads of all celestial life on that sphere.

37:3.6 (409.3) Two senior archangels are always assigned as the personal aids of a Paradise Avonal on all planetary missions, whether involving judicial actions, magisterial missions, or bestowal incarnations. When this Paradise Son has finished the judgment of a realm and the dead are called to record (the so-called resurrection),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seraphic guardians of the slumbering personalities respond to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 roll call of a dispensation termination is promulgated by an attendant archangel. This is the archangel of the resurrec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archangel of Michael."

37:3.7 (409.4) *The Worlds of the Archangels.* The

싸고 있는 일곱 번째 집단은 그들 연관된 위성들과 함께 천사장들에게 배속되어 있다. 1번 구체와 그 종속된 여섯 보조 위성들 모두는 개인성 기록 보관자들에게 차지된다. 이 엄청난 기록자 무리단은 시간의 각 필사자가 태어난 이후 우주 생애를 거쳐서 그러한 개별존체가 초우주 체제를 향해 구원자별을 떠나든지 아니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에 따라 “기록된 실존의 자국을 지우게” 될 때까지 그 기록을 정리하는 일로 분주하게 지낸다.

필사자가 죽은 이후부터 재(再)개인성구현되는, 죽음에서 부활하기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인성 기록들과 정체화구현 보증서들이 분류되고 정리되며 보관되는 일이 바로 이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제 4 장. 지고(至高)보좌관

지고(至高)보좌관들은 지역우주 밖에서 기원된, 지역 창조에게 그들의 관찰자, 또는 중앙과 초우주 대표자들로서 일시적으로 배정되는, 자원하는 존재들의 집단이다. 그들의 숫자는 항상 변하지만 언제나 수백만 명에 이른다.

네바돈 전체를 오르본톤의 관념 및 파라다이스의 이상들과 더욱 충만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우리들 토착 개인성들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리들과 함께 머무는 존재들인,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인자들, 우주 검열자들,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 삼위일체화 아들들, 단독 메신저들, 특급 천사들, 2품천사들, 3품천사들, 그리고 다른 인자한 사명활동자들과 같은, 그러한 파라다이스-기원 존재들의 사명활동과 도움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들 존재 중 누구든지 자원하여 네바돈에서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리들의 관찰권 밖에 있지만, 그러나 배정받아 기능할 때에는, 초우주 그리고 중앙우주의 그러한 개인성들은, 비록 그들이 보다 높은 우주의 대표자로서 기능하고 그리고 우리 영역에서의 그들의 임무를 이루는 지도들에 따라 일하기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지역우주의 규정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일반 본부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구원자별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대사(大使)의 총괄감독에 따르면서 네바돈에서 작용한다. 소속되지 않은 집단에서 봉사할 때, 보다 높은 영역들에서 온 이들 개인성들은 일상적으로 자아-방향결정 하지만, 요청에 의해 봉사할 때 그들은 배정된 기능 영역의 감독하는 지도자들의 관찰 밑으로 자신들을 전적으로 맡기곤 한다.

지고(至高)보좌관들은 지역우주에서 그리고

seventh group of the encircling Salvington worlds, with their associated satellites, is assigned to the archangels. Sphere number one and all of its six tributary satellites are occupied by the personality record keepers. This enormous corps of recorders busy themselves with keeping straight the record of each mortal of time from the moment of birth up through the universe career until such an individual either leaves Salvington for the superuniverse regime or is “blotted out of recorded existence” by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37.3.8 (409.5) It is on these worlds that personality records and identification sureties are classified, filed, and preserved during that time which intervenes between mortal death and the hour of repersonalization, the resurrection from death.

4. MOST HIGH ASSISTANTS

37.4.1 (409.6) The Most High Assistants are a group of volunteering beings, of origin outside the local universe, who are temporarily assigned as central and superuniverse representatives to, or observers of, the local creations. Their number varies constantly but is always far up in the millions.

37.4.2 (409.7) From time to time we thus benefit from the ministry and assistance of such Paradise-origin beings as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Universal Censors, Inspired Trinity Spirits, Trinitized Sons, Solitary Messengers, supernaphim, seconaphim, tertiaphim, and other gracious ministers, who sojourn with us for the purpose of helping our native personalities in the effort to bring all Nebadon into fuller harmony with the ideas of Orvonton and the ideals of Paradise.

37.4.3 (410.1) Any of these beings may be voluntarily serving in Nebadon and hence be technically outside our jurisdiction, but when functioning by assignment, such personalities of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are not wholly exempt from the regulations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sojourn, though they continue to function as representatives of the higher universes and to work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hich constitute their mission in our realm. Their general headquarters is situated in the Salvington sector of the Union of Days, and they operate in Nebadon subject to the oversupervision of this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When serving in unattached groups, these personalities from the higher realms are usually self-directing, but when serving on request, they often voluntarily place themselves whol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ervising directors of the realms of assigned function.

37.4.4 (410.2) Most High Assistants serve in local

별자리 능력에서 봉사한다, 그러나 체계나 행정부에는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들은 지역우주 어디 곳에서도 기능할 수 있고 네바돈 활동의 어떤 위상—행정-관리적 집행자, 교육, 그리고 다른 분야들—이든지 배정될 수 있다.

이 무리단의 대부분은 네바돈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연합으로 늘 계신이, 창조자 아들, 충심으로 늘 계신이,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돕는 일에 배속되어 있다. 지역창조 관련사들의 활동행위에서, 어떤 세부사항들은, 때로는 지역우주의 모든 토착 개인성들이 실천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된다. 어떤 앞선 계획들 그리고 복잡한 규정들이, 역시 보다 더 성숙되고 멀리 내다보는 지고(至高)보좌관 무리단에 의해 더 잘 파악되고 더 충분하게 납득되며, 또한 그들이 우주 통치자들과 행정-관리자들에게 아주 높게 봉사할 수 있는 상황들과 그리고 기타 많은 다른 경우가 그렇다.

제 5 장. 높은 위원

높은 위원들은 영-융합 상승 필사자들이다; 그들은 조절자와 융합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이후로 모든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기대되는 높은 운명이 되는 그것, 조절자 융합을 향한 필사 후보자의 우주-상승 생애에 대해 매우 잘 납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와 비슷한 세계들의 증여 이전(以前) 시대에 있는 모든 필사자가 가지는 독점적 운명이 아니며, 거주자들에게 생각 조절자들이 결코 영구하게 내주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세계도 있다. 그러한 필사자들은 파라다이스 증여의 신비 감시자와의 연합으로 영구적으로 합친 적이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자들은 그들에게 과도기적으로 내주하여, 육신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안내자와 원형틀로서 봉사한다. 이러한 일시적 체류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이 융합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존재 안에서 그들처럼, 불멸의 혼의 진화를 육성한다, 그러나 필사자 행로가 끝나면, 그들은 일시적인 관계적-연합의 그 창조체들을 영원히 떠난다.

이 계층의 생존된 혼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개별존재화된 영의 단편(斷片)과의 영원한 융합으로써 불멸성을 달성한다. 그들은 적어도 네바돈에서는, 많은 수의 집단이 아니다. 맨션세계에 가면 너희가 이 영-융합 필사자들을 만나고 형제 우애를 가지게 되겠지만, 그들은 구원자별에 이를 때까지 너희의 파라다이스 경로에서 함께 하며, 거기서 그들은 멈추게 된다. 그들 중 일부는 그 후에 더 높은 우주 차원들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역우주에서의 봉사를 위해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된다; 하나의 등급으로 이르자면,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도록 운명되어 있지는 않다.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universe and in constellation capacities but are not directly attached to the system or planetary governments. They may, however, function anywhere in the local universe and may be assigned to any phase of Nebadon activity — administrative, executive, educational, and others.

37:4.5 (410.3) Most of this corps is enlisted in assisting the Nebadon Paradise personalities — the Union of Days, the Creator Son, the Faithfuls of Days, the Magisterial Son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Now and then in the transaction of the affairs of a local creation it becomes wise to withhold certain details, temporarily, from the knowledge of practically all of the native personalities of that local universe. Certain advanced plans and complex rulings are also better grasped and more fully understood by the more mature and farseeing corps of Most High Assistants, and it is in such situations, and many others, that they are so highly serviceable to the universe rulers and administrators.

5. HIGH COMMISSIONERS

37:5.1 (410.4) The High Commissioners are Spirit-fused ascendant mortals; they are not Adjuster fused. You quite well understand about the universe-ascension career of a mortal candidate for Adjuster fusion, that being the high destiny in prospect for all Urantia mortals since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But this is not the exclusive destiny of all mortals in the prebestowal ages of worlds like yours, and there is another type of world whose inhabitants are never permanently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Such mortals are never permanently joined in union with a Mystery Monitor of Paradise bestowal; nevertheless, the Adjusters do transiently indwell them, serving as guides and patterns for the duration of the life in the flesh. During this temporary sojourn they foster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just as in those beings with whom they hope to fuse, but when the mortal race is run, they take eternal leave of the creatures of temporary association.

37:5.2 (410.5) Surviving souls of this order attain immortality by eternal fusion with an individualized fragment of the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not a numerous group, at least not in Nebadon.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meet and fraternize with these Spirit-fused mortals as they ascend the Paradise path with you as far as Salvington, where they stop. Some of them may subsequently ascend to higher universe levels, but the majority will forever remain in the service of the local universe; as a class they are not destined to attain Paradise.

37:5.3 (411.1) Not being Adjuster fused, they never

최종자가 될 수 없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지역우주 완전의 무리단에 소속되어진다. 그들은 “완전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영으로 복종해온 것이다.

네바돈 완전의 무리단을 달성한 이후에 영-융합 상승자들은 우주 도움자로서의 배정을 수락할 수 있는데, 이 존재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계속적인 체험적 성장의 큰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우주의 천상의 권한자들에게 물질세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관점을 해석하는 높은 봉사를 하는 위원회의 후보자들이 된다.

높은 위원들은 행성에서 종족 위원들로서 자신들의 봉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역량에서 그들은 다양한 인간 종족들의 관점들을 해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묘사한다. 그들은 필사 종족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자비와 공의(公義)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얻게 하려고 언제까지나 찾아 나서면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극으로 헌신한다. 종족 위원들은 끝없는 일련의 행성 위기들 속에서 기능하며, 투쟁하는 필사자들 전체 집단의 명확한 표현으로서 봉사한다.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오랜 체험을 가진 후에, 이 종족 위원들은 기능에서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지역우주의 높은 위원들의 지위를 지역우주에서 달성한다. 네바돈에서 이러한 높은 위원들의 최근에 등록된 숫자는 15억 명보다 약간 더 많다. 이 존재들은 최종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탄생 영역에 위대한 봉사를 하는 긴 체험을 가진 상승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 재판소들에서 이들 위원들을 늘 발견한다. 그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의 친구로서 활동하며, 판결에 관련된 자들의 전례(前例)와 환경 그리고 선천적 본성에 관해 주관하는 판사에게 자문한다.

높은 위원들은 다양한 공간의 메신저 무리에게, 시간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에게 항상 배속되어 있다. 그들은 다양한 우주 집회의 진행일정에서 만나게 되며, 바로 이들 필사자-지혜의 위원들이 항상 공간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임무에 배속되고 있다.

공정함과 공의(公義)가, 고려되는 정책이나 절차가 시간의 진화 종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답득을 요구할 때마다, 이들 위원이 자신들의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늘 옆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말하도록 현재 제시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말하도록 항상 현재 제시되어 있다.

become finaliters, but they do eventually become enrolled in the local universe Corps of Perfection. They have in spirit obeyed the Father's command, "Be you perfect."

37:5.4 (411.2) After attaining the Nebadon Corps of Perfection, Spirit-fused ascenders may accept assignment as Universe Aids, this being one of the avenues of continuing experiential growth which is open to them. Thus do they become candidates for commissions to the high service of interpreting the viewpoints of the evolving creatures of the material worlds to the celestial authorities of the local universe.

37:5.5 (411.3) The High Commissioners begin their service on the planets as race commissioners. In this capacity they interpret the viewpoints and portray the needs of the various human races. They are supremely devoted to the welfare of the mortal races whose spokesmen they are, ever seeking to obtain for them mercy, justice, and fair treatment in all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s. Race commissioners function in an endless series of planetary crises and serve as the articulate expression of whole groups of struggling mortals.

37:5.6 (411.4) After long experience in problem solving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race commissioners are advanced to the higher levels of function, eventually attaining the status of High Commissioners of and in the local universe. The last registration recorded slightly over one and one-half billion of these High Commissioners in Nebadon. These beings are not finaliters, but they are ascendant beings of long experience and of great service to their native realm.

37:5.7 (411.5) We invariably find these commissioners in all the tribunals of justice,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Not that the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justice, but they do act as friends of the court, advising the presiding magistrates respecting the antecedents, environment, and inherent nature of those concerned in the adjudication.

37:5.8 (411.6) High Commissioners are attached to the various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always to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hey are encountered on the programs of various universe assemblies, and these same mortal-wise commissioners are always attached to the missions of the Sons of God to the worlds of space.

37:5.9 (411.7) Whenever fairness and justice require an understanding of how a contemplated policy or procedure would affect the evolutionary races of time, these commissioners are at hand to present their recommendations; they are always present to speak for those who cannot be present to speak for themselves.

영-융합 필사자들의 세계들.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1차 세계들의 8번째 집단과 거기에 소속된 위성들은 오직 네바돈의 영-융합 필사자들만의 독점적인 소유물이다. 상승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영-융합 거주민들이 초청한 손님들로서 여러 차례 즐겁고 유익한 체류 기간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계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유버사와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소수들을 제외하고, 이 세계들은 영-융합된 생존자들의 영구한 거주지이다. 그러한 필사자 상승의 계획된 한계는, 증강되는 그들의 체험이 지역우주 관리-행정의 미래 안정성과 다양성 강화를 계속하게 될 영구적인 진화인구 유지의 보장으로 인한, 지역우주의 선(善)에 반응한다. 이 존재들은 파라다이스를 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과도기 상승자들에 의해 달성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능가하는 네바돈 문제의 통달 안에서 체험적인 지혜를 달성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혼은 인간적인 것들과 신성한 것들의 독특한 혼합체로서 계속 존재하는데, 계속 신장하는 지혜로 그러한 이중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리된 이 두 차원들에 대한 관점들을 점점 더 연합할 수 있게 된다.

제 6 장. 천상의 감독자

네바돈 교육 체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멜기세덱 교육 무리단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운영되지만, 그것의 유지와 발전에 효과를 미치도록 계획된 그 일의 대부분은 천상의 감독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존재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개별존재들을 포용하는 모집된 무리단이다. 네바돈에는 3백만 명이 넘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전체 영역에 대한 교육 충고자로서 봉사하기 위해 체험에 의해 분별화된 자원자들이다. 멜기세덱들의 구원자별 세계들에 있는 그들의 본부로부터, 이 감독자들은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마음 훈련과 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안된 네바돈 학교 기법에 대한 검열자로 지역우주를 돌아다닌다.

이러한 마음 훈련과 영 교육은 인간이 기원하는 세계들로부터 체계 맨션세계들 그리고 예루셈과 연관된 다른 진보 구체들을 거쳐, 에덴시아에 배속된 70개의 사회화 영역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원자별을 감싸고 있는 영 진보의 490개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우주 본부 자체에는 수많은 멜기세덱 학교들, 우주 아들들의 대학들, 세라핌천사 대학들, 그리고 교사 아들들과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학교들이 있다. 증진되는 봉사와 개진되는 기능을 위해 우주의 다양한 개인성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모든 가능한 준비가

37:5.10 (411.8) *The Worlds of the Spirit-fused Mortals.* The eighth group of seven primary worlds and tributary satellite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Spirit-fused mortals of Nebadon. Ascending Adjuster-fused mortals are not concerned with these worlds except to enjoy many pleasant and profitable sojourns as the invited guests of the Spirit-fused residents.

37:5.11 (411.9) Except for those few who attain Uversa and Paradise, these worlds are the permanent residence of the Spirit-fused survivors. Such designed limitation of mortal ascent reacts to the good of the local universes by insuring the retention of a permanent evolved population whose augmenting experience will continue to enhance the future stabi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beings may not attain Paradise, but they achieve an experiential wisdom in the mastery of Nebadon problems that utterly surpasses anything attained by the transient ascenders. And these surviving souls continue as unique combinations of the human and the divine, being increasingly able to unite the viewpoints of these two widely separate levels and to present such a dual viewpoint with ever-heightening wisdom.

6. CELESTIAL OVERSEERS

37:6.1 (412.1) The Nebadon educational system is jointly administer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the Melchizedek teaching corps, but much of the work designed to effect its maintenance and upbuilding is carried on by the Celestial Overseers. These beings are a recruited corps embracing all types of individuals connected with the scheme of educating and training the ascending mortals. There are upward of three million of them in Nebadon, and they are all volunteers who have qualified by experience to serve as educational advisers to the entire realm. From their headquarters on the Salvington worlds of the Melchizedeks, these overseers range the local universe as inspectors of the Nebadon school technique designed to effect the mind training and the spirit education of the ascending creatures.

37:6.2 (412.2) This training of mind and education of spirit is carried on from the worlds of human origin up through the system mansion worlds and the other spheres of progress associated with Jerusalem, on the seventy socializing realms attached to Edentia, and on the four hundred and ninety spheres of spirit progress encircling Salvington.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itself are numerous Melchizedek schools, the colleges of the Universe Sons, the seraphic universities, and the schools of the Teacher Sons and the

이루어진다. 전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다.

많은 더 높은 학교들에서 채택된 방법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인간적 개념을 능가하지만, 전체 교육 체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격은 깨우쳐지는 체험에 의해 얻어진다. 교사들은 깨우침을 제공한다; 우주 정거장과 상승하는 자의 지위는 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두 가지의 지혜로운 활용은 성격을 증강시킨다.

근본적으로, 네바돈 교육 체계는 너희로 하여금 임무에 배치되도록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도 신성한 방법에 관한 지침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너희에게는 수행될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너희는 너희에게 부과된 것을 실행하는 최상의 방법에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도록 분별화된 선생들을 제공받고 있다. 교육에 대한 신성한 계획은 작업과 가르침의 긴밀한 관계적-연합을 위해 제공된다. 우리는 우리가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모든 훈련과 체험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초우주의 더 높고 더 영적인 교육 구체들로 받아들여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영역에서의 진보는 개별적이지만, 한 위상에서 다음 위상으로 옮겨지는 것은 대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원의 진보는 오로지 영적 발전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적 습득도 역시 우주 교육의 일부분이다. 마음의 체험은 영적 지평의 확대와 동등하게 함께 넓어진다. 마음과 영은 훈련과 전진을 위한 서로 닮은 기회들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마음과 영의 이러한 모든 장엄한 훈련에서 너희는 필사 육신의 장애로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롭다. 너희는 너희의 분기되어 서로 갈라지는 영적 본성과 물질적 본성의 상충하는 다름들을 늘 심판해야만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물질적 사물을 향하는 원시적인 동물같은 성향들을 벗겨낸 지 오랜 후에, 너희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마음의 통합된 추진력을 즐길 수 있도록 분별화된다.

네바돈 우주를 떠나기 전에, 유란시아 필사자들 대부분은 천상의 감독자들의 네바돈 무리단의 일원으로서 다소간의 시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제 7 장. 맨션세계 교사

맨션세계 교사들은 모집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케루빔들이다. 네바돈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된다. 그들은 모론시아 삶의 교육 체계

Union of Days. Every possible provision is made to qualify the various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for advancing service and improving function. The entire universe is one vast school.

37:6.3 (412.3) The methods employed in many of the higher schools are beyond the human concept of the art of teaching truth, but this is the keynote of the whole educational system: character acquired by enlightened experience. The teachers provide the enlightenment; the universe station and the ascender's status afford the opportunity for experience; the wise utilization of these two augments character.

37:6.4 (412.4) Fundamentally, the Nebadon educational system provides for your assignment to a task and then affords you opportunity to receive instruction as to the ideal and divine method of best performing that task. You are given a definite task to perform, and at the same time you are provided with teachers who are qualified to instruct you in the best method of executing your assignment. The divine plan of education provides for the intimate association of work and instruction. We teach you how best to execute the things we command you to do.

37:6.5 (412.5) The purpose of all this training and experience is to prepare you for admission to the higher and more spiritual training spheres of the superuniverse. Progress within a given realm is individual, but transition from one phase to another is usually by classes.

37:6.6 (412.6) The progression of eternity does not consist solely in spiritual development. Intellectual acquisition is also a part of universal education. The experience of the mind is broadened equally with the expansion of the spiritual horizon. Mind and spirit are afforded like opportunities for training and advancement. But in all this superb training of mind and spirit you are forever free from the handicaps of mortal flesh. No longer must you constantly referee the conflicting contentions of your divergent spiritual and material natures. At last you are qualified to enjoy the unified urge of a glorified mind long since divested of primitive animalistic trends towards things material.

37:6.7 (413.1) Before leaving the universe of Nebadon, most Urantia mortals will be afforded opportunity to serve for a longer or shorter time as members of the Nebadon corps of Celestial Overseers.

7. MANSION WORLD TEACHERS

37:7.1 (413.2) The Mansion World Teachers are recruited and glorified cherubim. Like most other instructors in Nebadon they are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They function in most of the

들 대부분에서 기능하며, 그들의 숫자는 필사자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의 달성 차원에 있어서는, 맨션세계 교사들이 다음 장에서 더 많이 배려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반면에 모론시아 삶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로서의 그들은 그 이름의 글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 8 장. 배정된 높은 영 계층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계열에 해당하는 어떤 높은 기원의 영 존재들이 지역우주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무한한 영의 계열에 해당하는 더 높은 영 계층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배정되어 있다:

단독 메신저들은, 지역우주 관리-행정에 기능적으로 배속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봉사를 베푼다. 그들이 그렇게 배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역우주들에 있는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독특한 이 존재들은 항상 우리들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우리 위임 명령들의 집행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안도본시아는 우리 지역우주에 위치한 3차 우주 순환회로 감독자의 이름이다. 그는 오직 영 순환회로들과 모론시아 순환회로들에만 관계하고, 힘 지도자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루시퍼 반란에 대해 시험하던 시기 동안 행성의 칼리가스티아가 배반하였을 때 바로 그가 유란시아를 고립시켰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인사말을 보냄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감독하는 우주 순환회로로 너희가 언젠가 복귀할 것에 대한 예상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네바돈 인구조사 지도자인 살사시아는 구원자별의 가브리엘 구역 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는 의지의 탄생과 죽음을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지역우주에서 기능하는 의지창조체들의 정확한 숫자를 현재 값으로 등록한다. 그는 천사장들의 기록 세계들에 거주하는 개인성 기록자들과 가깝게 관계적-연합되어 일한다.

연관-동료 검열자 한 명이 구원자별에 거주한다. 그는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개인 대표자이다. 그의 연관-동료들인, 지역 체계들에 있는 배정된 파수자들 역시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대표자들이다.

우주화해자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의 이동 재판소인데, 진화 세계들로부터 지역우주의 각 구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morontia life, and their number is quite beyond the comprehension of mortal mind.

37:7.2 (413.3) As an attainment level of cherubim and sanobim, the Mansion World Teachers will receive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next paper, while as teachers playing an important part in the morontia life, they will be more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paper of that name.

8. HIGHER SPIRIT ORDERS OF ASSIGNMENT

37:8.1 (413.4) Besides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certain of the higher-origin spirit beings of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are of permanent assignment to the local universe. Of the higher spirit orders of the family of the Infinite Spirit the following are so assigned:

37:8.2 (413.5) The *Solitary Messengers*, when functionally attached to the local universe administration, render invaluable service to us in our efforts to overcome the handicaps of time and space. When they are not thus assigned, we of the local universes have absolutely no authority over them, but even then these unique beings are always willing to help us with the solution of our problems and with the execution of our mandates.

37:8.3 (413.6) Andovontia is the name of the tertiary *Universe Circuit Supervisor* stationed in our local universe. He is concerned only with spirit and morontia circuits, not with tho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ower directors. It was he who isolated Urantia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betrayal of the planet during the testing seasons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ending greetings to the mortals of Urantia, he expresses pleasure in the anticipation of your sometime restoration to the universe circuits of his supervision.

37:8.4 (413.7) The *Nebadon Census Director*, Salsatia, maintains headquarters within the Gabriel sector of Salvington. He is automatically cognizant of the birth and death of will and currently registers the exact number of will creatures functioning in the local universe. He works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personality recorders domiciled on the record worlds of the archangels.

37:8.5 (413.8) An *Associate Inspector* is resident on Salvington. He i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His associates, the *Assigned Sentinels* in the local systems, are also representatives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37:8.6 (414.1) The *Universal Conciliators* are the traveling courts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역들은 물론 그 이상에서까지 기능한다. 이 심판관들은 유버사에 등록되어 있다; 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추산하기로는 우리 지역우주에 약 1억 명의 화해하는 위원들이 있다.

기술 충고자들, 영역의 법적 마음이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숫자는 약 5억 명이다. 이 존재들은 모든 공간의 살아있는 그리고 순환하는 체험적 법률 도서관들이다.

천상의 기록자들, 상승한 세라핌천사이며, 이 중에서 우리는 네바돈에 75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선임 또는 감독하는 기록자들이다.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계층의 앞서 나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40억 명에 이른다.

네바돈에 있는 700억 명의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시간의 순례자들이 있는 과도기 행성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설명된다.

각각의 우주는 그 자체의 토착 천사 무리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창조의 외부에서 기원된 보다 높은 영들의 협조가 매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 초(超)천사는 어떤 드물고 독특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유란시아 세라핌천사의 현재 우두머리는 파라다이스의 1차 초(超)천사이다. 반영하는 2품천사는 초우주 성원들이 기능하는 곳은 어디든지 발견되며, 매우 많은 3품천사들이 지고(至高)보좌관들로서 임시로 봉사한다.

space, function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up through every sect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on beyond. These referees are registered on Uversa; the exact number operating in Nebadon is not of record, but I estimate that there are in the neighborhood of one hundred million conciliating commissions in our local universe.

37:8.7 (414.2) Of the *Technical Advisers*, the legal minds of the realm, we have our quota, about one-half billion. These beings are the living and circulating experiential law libraries of all space.

37:8.8 (414.3) Of the *Celestial Recorders*, the ascendant seraphim, we have in Nebadon seventy-five. These are the senior or supervising recorders. The advancing students of this order in training number almost four billion.

37:8.9 (414.4) The ministry of the seventy billion *Morontia Companions* in Nebadon is described in thos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transition planets of the pilgrims of time.

37:8.10 (414.5) Each universe has its own native angelic corps; nevertheless, there are occasions on which it is very helpful to have the assistance of those higher spirits of origin outside the local creation. Supernaphim perform certain rare and unique services; the present chief of Urantia seraphim is a primary supernaphim of Paradise. The reflective seconaphim are encountered wherever the superuniverse personnel is functioning, and a great many tertiaphim are of temporary service as Most High Assistants.

제 9 장. 지역우주의 영구 시민

초우주와 중앙우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우주 역시 자체 영구 시민신분 계층들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창조된 유형들을 포함한다:

1. 수사시아.
2. 유니비타시아.
3. 물질아들.
4. 중도(中途) 창조체.

지역 창조의 이들 토착들은, 영-융합 상승자들 그리고 스피롱가(다르게 분류되는 존재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영구 시민신분을 구성한다. 이 계층의 존재들은 대체로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체험적 창조체이지만, 그들의 확대되는 체험은 기원된 그들의 차원에서 우주에 계속 이용된다. 반면에 이것이 아담의 아들들과 중도(中途) 창조체들에게 전적으로 참 말은 아니지만, 이들 계층들에게 상대적으로 참말이다.

9.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37:9.1 (414.6) As with the super- and central universes, the local universe has its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These include the following created types:

- 37:9.2 (414.7) 1. Susatia.
- 37:9.3 (414.8) 2. Univitatia.
- 37:9.4 (414.9) 3. Material Sons.
- 37:9.5 (414.10) 4. Midway Creatures.

37:9.6 (414.11) These natives of the local creation, together with the Spirit-fused ascenders and the spironga (who are otherwise classified), constitute a relatively permanent citizenship. These orders of beings are by and large neither ascending nor descending. They are all experiential creatures, but their enlarging experience continues to be available to the universe on their level of origin. While this is not wholly true of the Adamic Sons and midway creatures, it is relatively true of these orders.

수사시아. 이들 기묘한 존재들은 이 지역우주의 본부인 구원자별에서 영구시민으로서 거주하고 기능한다. 그들은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훌륭한 자손들이며 네바돈 완전의 무리단의 영-융합 필사자인 지역우주의 상승하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니비타시아. 고안건축 구체들의 100개 별자리 본부 군(群)의 각각은 유니비타시아라고 알려진 존재들의 거주 계층의 계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으로부터 나온 이 자녀들은 별자리 본부 세계들의 영구적인 주민의 일원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물질아들들의 반(半) 물질적 지위와 영-융합 필사자들 그리고 구원자별의 수사시아의 보다 더 명확히 영적 수준 사이에서 중간 점의 생명 수준에 존재하는 재생산 불가능 존재들이다; 유니비타시아는 모론시아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중앙 창조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순례자 영들에게 하보나 원주민들이 기여하는 것을 별자리 공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해 성취한다.

하느님의 물질아들. 무한한 영의 우주 대리자인 우주 어머니 영과 창조자 아들 사이의 창조적인 연락이 그 순환주기를 완성하였을 때, 병합된 본성의 자손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을 때, 창조자 아들은 그의 존재의 마지막 개념을 이원적(二元的) 형태로 개인성구현하며, 그리하여 그 자신이 가진 그리고 기원적인 이원적(二元) 기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우주 아들 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아름답고 뛰어난 아들과 딸들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창조한다. 이것이 네바돈의 각 지역체계의 기원적 아담과 이브의 기원이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는, 아들관계의 재생산 가능한 계층이다. 그들의 자손은, 일부가 행성 아담으로 임명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체계 수도의 영구시민들로서 기능한다.

행성 임무에서 물질아들과 딸은 그 세계의 아담의-종족을 세우도록 임명되는데 그 종족은 결국에는 그 구체의 필사자 거주자들과 혼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행성 아담들은 하강하고 상승하는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대개 그들을 상승하는 존재로 분류한다.

중도(中途) 창조체들.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의 초기 시대에, 초인간적이지만 물질적 어떤 존재들이 배정되는데, 그들은 대개 행성 아담들이 도착할 때 물러난다. 진화적 종족들의 개선키기 위한 그러한 존재들의 활동행위와 물질아들들의 노력은 분류되기 어려운 한정된 숫자의 창조체들이 출현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아들과 진화적 창조체들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37:9.7 (414.12) *The Susatia.* These marvelous beings reside and function as permanent citizens on Salvington, the headquarters of this local universe. They are the brilliant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and Creative Spirit and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scenda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the Spirit-fused mortals of the Nebadon Corps of Perfection.

37:9.8 (414.13) *The Univatia.* Each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headquarters clusters of architectural spheres enjoys the continuous ministry of a residential order of beings known as the univatia. These childre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constitute the permanent population of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They are nonreproducing beings existing on a plane of life about halfway between the semimaterial status of the Material Sons domicil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and the more definitely spiritual plane of the Spirit-fused mortals and the susatia of Salvington; but the univatia are not morontia beings. They accomplish for ascending mortals during the traversal of the constellation spheres what the Havona natives contribute to the pilgrim spirits passing through the central creation.

37:9.9 (415.1) *The Material Sons of God.* When a creative liaison between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the Universe Mother Spirit, has completed its cycle, when no more offspring of the combined nature are forthcoming, then does the Creator Son personalize in dual form his last concept of being, thus finally confirming his own and original dual origin. In and of himself he then creates the beautiful and superb Sons and Daughters of the material order of universe sonship. This is the origin of the original Adam and Eve of each local system of Nebadon. They are a reproducing order of sonship, being created male and female. Their progeny function as the relatively permanent citizens of a system capital, though some are commissioned as Planetary Adams.

37:9.10 (415.2) On a planetary mission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commissioned to found the Adamic race of that world, a race designed eventually to amalgamate with the mortal inhabitants of that sphere. Planetary Adams are both descending and ascending Sons, but we ordinarily class them as ascending.

37:9.11 (415.3) *The Midway Creatures.* In the early days of most inhabited worlds, certain superhuman but materialized beings are of assignment, but they usually retire upon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Adams. The transactions of such beings and the efforts of the Material Sons to improve the evolutionary races often result in the appearance of a limited number of creatures who are difficult to classify. These unique beings are

중도(中途) 창조체들이라고 불린다. 대비하는 감각에서 본다면, 이 중도자(中途者)들은 진화 세계의 영구시민이다. 행성영주가 도착하는 초기 시대부터 빛과 생명에 행성이 정착하는 먼 훗날의 시대까지, 그들은 구체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지능 존재 집단이다. 유란시아에서 중도(中途) 사명활동자들은 실체 안에서 실제로 행성의 실제적 보호관리자들이다; 실천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유란시아의 시민들이다. 필사자들이 진화 세계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주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 모두는 너무나 짧게 산다; 너희는 너희 태어난 행성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 머문다. 너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진화적 진보의 다른 세계들로 옮겨진다. 행성들에서 천상의 사명활동자들로 봉사하는 초인간적 존재들조차도 과도기 배정을 받은 것이다; 그들 중에서 주어진 구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튼,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항상 변화하는 천상의 보살핌과 계속적으로 바뀌는 필사자 거주민들 가운데서 행성 관리-행정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끊임없는 이러한 변화와 변천 전체를 통하여,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행성에 남는다.

마찬가지로, 지역우주들과 초우주들의 관리-행정 조직의 모든 분야들은 다소간의 영구 주민들, 시민권 지위의 거주민들을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에 중도자(中途者)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체계 수도인 예루셈에는 물질아들과 딸들이 있다; 너희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는 유니비타시아가 있으며, 한편 구원자별의 시민은 이중적이어서 창조된 수사시아와 진화된 영-융합 필사자들이 있다. 초우주들의 소구역과 대구역의 관리-행정적 세계들에는 영구시민들이 없다. 그러나 유버사 본부 구체들은 아반돈터라고 알려진 놀라운 존재들의 집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육성되는데, 그들은 오르본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일곱 반영 영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미(未)계시 대리자의 창조체들이다. 유버사에서 거주하는 이 시민들은 현재, 아들-융합 필사자들로 구성된 유버사 무리단의 즉각적인 감독 아래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보나 역시 토착 존재들이 있으며, 빛과 생명의 중앙 섬은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다양한 집단들의 고향이다.

제 10 장. 다른 지역우주 집단

이어지는 글들에서 고려될 세라핌천사 그리고 필사자 계층을 제외하고, 현재는 3백만 개 이상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있고 1천만 개가 예상되는 네바돈 우주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완전을 이루는 데에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있다. 다양한 네바돈 생명 형태들은

often midway between the Material Sons and the evolutionary creatures; hence their designation, midway creatures. In a comparative sense these midwayers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evolutionary worlds. From the early days of the arrival of a Planetary Prince to the far-distant time of the settling of the planet in light and life, they are the only group of intelligent beings to remain continuously on the sphere. On Urantia the midway ministers are in reality the actual custodians of the planet; they are, practically speaking, the citizens of Urantia. Mortals are indeed the physical and material inhabitants of an evolutionary world, but you are all so short-lived; you tarry on your nativity planet such a short time. You are born, live, die, and pass on to other worlds of evolutionary progression. Even the superhuman beings who serve on the planets as celestial ministers are of transient assignment; few of them are long attached to a given sphere. The midway creatures, however, provide continuity of planetary administration in the face of ever-changing celestial ministries and constantly shifting mortal inhabitants. Throughout all of this never-ceasing changing and shifting, the midway creatures remain on the planet uninterruptedly carrying on their work.

37:9.12 (415.4) In like manner, all di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have their more or less permanent populations, inhabitants of citizenship status. As Urantia has its midwayers, Jerusem, your system capital, ha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Edentia, your constellation headquarters, has the univitatia, while the citizens of Salvington are twofold, the created susatia and the evolved Spirit-fused mortals. The administrative worlds of the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s do not have permanent citizens. But the Uversa headquarters spheres are continuously fostered by an amazing group of beings known as the *abandoners*, the creation of the unrevealed agent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resident on the capital of Orvonton. These residential citizens on Uversa are at present administering the routine affairs of their world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Uversa corps of the Son-fused mortals. Even Havona has its native beings, and the central Isle of Light and Life is the home of the various groups of Paradise Citizens.

10. OTHER LOCAL UNIVERSE GROUPS

37:10.1 (416.1) Besides the seraphic and mortal orders, who will be considered in later papers,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beings concerned in the maintenance and perfecting of such a gigantic organization as the universe of Nebadon, which even now has more than three million inhabited

너무나 많아서 이 글에 목록을 게재할 수도 없지만, 지역우주의 647,591개 고안건축 구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두 가지 특별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롱가들은 빛나는 새벽별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영 후손이다. 그들은 개인성 소멸에서 제외되지만 진화하거나 상승하는 존재들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화적 상승 체제에 기능적으로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영 조력자들인데, 네바돈의 일상적인 영 임무들을 실행한다.

스포르나기아. 지역우주의 고안건축의 본부 세계들은 실제적인 세계들—물리적 창조계들—이다. 거기에는 그것들의 물리적 보존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스포르나기아로 불리는 물리적 창조체들의 집단의 협조를 받는다. 그들은 예루셈으로부터 구원자별에 이르기까지 이 본부 세계들의 물질적인 위상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다. 스포르나기아들은 영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며; 실존하는 동물 계층이지만, 만일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이 완전한 동물들로 보인다고 동의할 것이다.

다양한 우대(優待)거류민단이 구원자별과 다른 곳에 거주한다. 우리는 특별히 별자리들에 있는 천상의 거장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복귀 지도자들의 활동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그들은 주로 지역우주의 수도에서 활동한다.

우주 봉사에는 영화롭게 된 중도(中途) 창조체들을 포함하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무리단이 항상 배속되어 있다. 이 상승자들은, 구원자별을 달성한 후에, 우주 관련사들의 처리행위에서 거의 끝없는 다양한 활동들에 활용된다. 각각의 성취 차원으로부터, 전진하는 이 필사자들은 뒤와 밑으로 손을 내 뻗어, 위를 향한 상승으로 자신들을 따라오는 자기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구원자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요청을 받으면 실천적으로 조력자, 학생, 관찰자, 그리고 선생들로서 모든 천상의 개인성들의 무리단에 배정된다.

지역우주의 관리-행정과 관련된 지능적 생명의 다른 유형들이 아직도 더 있지만, 이번이야기에서의 계획은 이들 창조계층에 대해 더 이상의 계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생존되는 실존의 실체와 장대함을 필사자 마음이 파악하기에 알맞도록, 이 우주의 생명들과 관리-행정에 충분한 분량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다.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들 속에서 더 많은 체험이 이 흥미롭고 매력 있는 존재들을 점점 더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훈련 학교들로서 이 창조체들을 관리-운영하는 공간의 우주들에 쇄도하는 가지각색의 개인성들의 본성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윤곽만을 제시할 뿐이다, 학교들 그곳에서 시간의 순례자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우주의 경계선으로부터 초우주

worlds, with ten million in prospect. The various Nebadon types of life are much too numerous to be catalogued in this paper, but there are two unusual orders that function extensively on the 647,591 architectural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 that may be mentioned.

37:10.2 (416.2) The *Spironga* are the spirit offspring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and the Father Melchizedek. They are exempt from personality termination but are not evolutionary or ascending beings. Neither are they functionally concerned with the evolutionary ascension regime. They are the spirit helpers of the local universe, executing the routine spirit tasks of Nebadon.

37:10.3 (416.3) The *Spornagia*. The architectural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are real worlds — physical creations. There is much work connected with their physical upkeep, and herein we have the assistance of a group of physical creatures called spornagia. They are devoted to the care and culture of the material phases of these headquarters worlds, from Jerusem to Salvington. Spornagia are neither spirits nor persons; they are an animal order of existence, but if you could see them, you would agree that they seem to be perfect animals.

37:10.4 (416.4)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are domiciled on Salvington and elsewhere. We especially profit from the ministry of the celestial artisans on the constellations and benefit from the activities of the reversion directors, who operate chiefly o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37:10.5 (416.5) Always there is attached to the universe service a corps of ascending mortals, including the glorified midway creatures. These ascenders, after attaining Salvington, are used in an almost endless variety of activities in the conduct of universe affairs. From each level of achievement these advancing mortals reach back and down to extend a helping hand to their fellows who follow them in the upward climb. Such mortals of temporary sojourn on Salvington are assigned on requisition to practically all corp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 helpers, students, observers, and teachers.

37:10.6 (416.6) There are still other types of intelligent life concern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but the plan of this narrative does not provide for the further revelation of these orders of creation. Enough of the life and administration of this universe is being herewith portrayed to afford the mortal mind a grasp of the reality and grandeur of the survival existence. Further experience in your advancing careers will increasingly reveal these interesting and charming beings. This narrative cannot be more than a brief outline of the nature and work of the manifold personalities who throng the universes of space administering these creations as enormous training schools, schools

의 보다 높은 교육 체제를 향하여 사랑 가득함으로 파송되어, 그곳으로부터 계속 하보나의 영-혼련 세계로, 결국에는 파라다이스에 그리고 최종자의 높은 운명—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향한 아직 계시되지 않는 임무에 영원히 배정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삶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로 나아간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 창조된 무리단의 1,146번에 의해 구술되었음]

wherein the pilgrims of time advance from life to life and from world to world until they are lovingly dispatched from the borders of the universe of their origin to the higher educational regime of the superuniverse and thence on to the spirit-training worlds of Havona and eventually to Paradise and the high destiny of the finaliters — the eternal assignment on missions not yet revealed to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37:10.7 (417.1) [Dicta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Number 1,146 of the Created Corps.]

제 38 편 지역우주의 사명활동 영

⇨ 037

유랜시아 책

039 ⇨

부 II. 지역우주

제 38 편 지역우주의 사명활동 영

색션

소개

제 1 장. 세라핌천사의 기원

제 2 장. 천사의 본성

제 3 장. 미(未)계시 천사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세계

제 5 장. 세라핌천사의 훈련

제 6 장. 세라핌천사의 조직

제 7 장. 케루빔과 사노빔

제 8 장. 케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제 9 장. 중도(中途) 창조체들

PAPER 38

MINISTERING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of Seraphim

2. Angelic Natures

3. Unrevealed Angels

4. The Seraphic Worlds

5. Seraphic Training

6. Seraphic Organization

7. Cherubim and Sanobim

8. Evolution of Cherubim and Sanobim

9. The Midway Creatures

소개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중에는 세 가지 다른 계층들이 있다. 성급한 사도가 예수에 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느님 오른 편에 있으며, 천사들과 권한자들과 힘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는 이것을 납득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시간의 사명활동 영이다; 권한자들은 공간의 메신저 무리이다; 힘들은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이다.

중앙우주의 초(超)천사들과 초우주의 2품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연관된 케루빔들과 사노빔들과 함께, 지역우주의 천사 무리단을 구성한다.

세라핌천사들은 설계상으로는 모두가 아주 균일하다. 우주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곱 초우주에 두루, 그들은 최소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들은 개인성 존재들의 모든 영 유형들에서 가장 표준과 가깝다. 그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지역 창조계의 숙련된 그리고 평상적인 사명활동자 무리

INTRODUCTION

38:0.1 (418.1) THERE are three distinct orders of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impetuous apostle understood this when he wrote respecting Jesus, “who has gone to heaven and is on the right hand of God, angels and authorities and powers being made subject to him.” Angels are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uthorities,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powers,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38:0.2 (418.2) As the supernaphim in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econaphim in a superuniverse, so the seraphim, with the associated cherubim and sanobim, constitute the angelic corps of a local universe.

38:0.3 (418.3) The seraphim are all fairly uniform in design. From universe to universe, throughout all seven of the superuniverses, they show a minimum of variation; they are the most nearly standard of all spirit types of personal beings. Their various orders constitute the corps of the skilled and common ministers of the local

단을 구성한다.

creations.

제 1 장. 세라핌천사의 기원

세라핌천사들은 우주어머니 영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네바돈의 초기 시대에서 “원형틀 천사들”과 어떤 천사의 전형(典型)들이 창조된 이래 단일 형태화로—일시에 41,472—계속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왔다. 창조자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는 많은 숫자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우주 개인성들의 창조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연합된 수고가 완료된 후에, 아들은 물질아들들, 유성(有性) 창조체들의 첫 번째 창조에 들어가고 반면, 우주어머니 영은 영 번식에 대한 그녀의 최초의 단독 노력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지역우주의 세라핌천사 무리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 천사 계층들은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의 진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될 때 구체적으로 투사된다. 세라핌천사들의 창조는 우주 어머니 영에게 상대적인 개인성이 달성된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후의 주(主) 아들의 조화-협동자로서가 아니고, 자기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조력자로서이다. 이 사건 전에 네바돈에서 근무하던 세라핌천사들은 이웃 우주로부터 임시로 빌려왔다.

세라핌천사들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완전해지고 있는 우주 안에서 창조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제 2 장. 천사의 본성

천사들은 물질적인 몸체를 갖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고 뚜렷이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영 본성과 기원의 존재이다. 필사자들에게 보일 수 없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있는 너희 그대로를 변환자 또는 전환자 없이 감지하고 있다; 필사자 삶의 양상을 지적으로 납득하고, 사람의 비(非)감각적 감성과 정서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음악과 예술 그리고 실제 유머에서 너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매우 즐긴다. 그들은 너희의 도덕적 투쟁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존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을 납득하고 사랑하려는 너희의 노력에서는 오직 좋은 것만 귀결될 수 있다.

세라핌천사들이 매우 애정이 깊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성(性)-감정을 지닌 창조체들은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맨션세계, 너희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곳에서 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는 “맨션세계를 달성할 만 하다고 여겨질 모든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가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천

1. ORIGIN OF SERAPHIM

38:1.1 (418.4) Seraphim are creat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have been projected in unit formation — 41,472 at a time —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pattern angels” and certain angelic archetypes in the early times of Nebadon. The Creator Son and the universe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collaborate in the creation of a large number of Sons and other universe personaliti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is united effort, the Son engages in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Sons, the first of the sex creatures, while the Universe Mother Spirit concurrently engages in her initial solitary effort at spirit reproduction. Thus begins the creation of the seraphic hosts of a local universe.

38:1.2 (418.5) These angelic orders are projected at the time of planning for the evolution of mortal will creatures. The creation of seraphim dates from the attainment of relative personality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not as the later co-ordinate of the Master Son, but as the early creative helper of the Creator Son. Previous to this event the seraphim on duty in Nebadon were temporarily loaned by a neighboring universe.

38:1.3 (418.6) Seraphim are still being periodically created; the universe of Nebadon is still in the making. The Universe Mother Spirit never ceases creative activity in a growing and perfecting universe.

2. ANGELIC NATURES

38:2.1 (419.1) Angels do not have material bodies, but they are definite and discrete beings; they are of spirit nature and origin. Though invisible to mortals, they perceive you as you are in the flesh without the aid of transformers or translators; they intellectually understand the mode of mortal life, and they share all of man's nonsensuous emotions and sentiments. They appreciate and greatly enjoy your efforts in music, art, and real humor. They are fully cognizant of your moral struggles and spiritual difficulties. They love human beings, and only good can result from your efforts to understand and love them.

38:2.2 (419.2) Though seraphim are very affectionate and sympathetic beings, they are not sex-emotion creatures. They are much as you will be on the mansion worlds, where you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but will be as the angels of heaven.” For all who “shall be accounted worthy to attain the mansion worlds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neither do they die any more, for

사들과 같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有性) 창조체들을 다루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더욱 직접으로 내려오는 저들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이야기하고, 반면에 영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딸들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유성(有性) 행성들에서 대개 여성 명사로 표현된다.

세라핌천사들은 영적 그리고 사실적 차원 둘 모두에서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들의 봉사자명에 개방되지 않은 모론시아 활동 또는 영 활동의 위상은 거의 없다. 개인성 지위로 볼 때 천사들은 인간 존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나, 일정한 기능적 행위에 있어서 세라핌천사는 그들을 크게 초월한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너희 머리털도 모두 수를 세었다.”라는 말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러나 세라핌천사가 숫자를 세고 그리고 매번 그 정확한 숫자를 세려고 그녀의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너희가 감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이다) 힘을 소유하고 있다; 너희는 세라핌천사를 수학 천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자들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의무들이 세라핌천사에 의해 매우 쉽게 수행되곤 한다.

천사들은 영적 지위에서 너희보다 우월하지만, 그들은 너희의 심판자도 아니고 고발자도 아니다. 너희가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매우 더 크지만,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인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개별 필사자들 또한 자기들의 동료 창조체들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찬미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위대한 세라핌천사인 로알라시아는 너희 예언자가 “천사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두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명받은, 당신과 당신 종족들과 함께 하는 동료 일꾼입니다.”

본성과 개인성 자질에서, 세라핌천사들은 창조체 실존의 눈금에서 필사 종족보다 약간 앞서 있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될 때 너희는 정말로 그들과 매우 흡사하게 된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세라핌천사들을 올바르게 알기 시작할 것이며, 별자리 구체에서는 그들과 즐기는 반면, 구원자별에서는 그들이 안식과 경배의 자기들의 자리를 너희와 공유할 것이다. 모론시아와 그 이후 영 상승에 두루, 세라핌천사들과 갖는 너희의 형제우애관계는 이상적이 될 것이다; 너희의 동행자 신분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they are equal to the angels.” Nevertheless, in dealing with sex creatures it is our custom to speak of those beings of more direct descent from the Father and the Son as the sons of God, while referring to the children of the Spirit as the daughters of God. Angels are, therefore, commonly designated by feminine pronouns on the sex planets.

38:2.3 (419.3) The seraphim are so created as to function on both spiritual and literal levels. There are few phases of morontia or spirit activity which are not open to their ministrations. While in personal status angels are not so far removed from human beings, in certain functional performances seraphim far transcend them. They possess many powers far beyond human comprehension. For example: You have been told tha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and it is true they are, but a seraphim does not spend her time counting them and keeping the number corrected up to date. Angels possess inherent and automatic (that is, automatic as far as you could perceive) powers of knowing such things; you would truly regard a seraphim as a mathematical prodigy. Therefore, numerous duties which would be tremendous tasks for mortals are performed with exceeding ease by seraphim.

38:2.4 (419.4) Angels are superior to you in spiritual status, but they are not your judges or accusers. No matter what your faults, “the angels, although greater in power and might, bring no accusation against you.” Angels do not sit in judgment on mankind, neither should individual mortals prejudice their fellow creatures.

38:2.5 (419.5) You do well to love them, but you should not adore them; angels are not objects of worship. The great seraphim, Loyaltia, when your seer “fell down to worship before the feet of the angel,” said: “See that you do it not; I am a fellow servant with you and with your races, who are all enjoined to worship God.”

38:2.6 (419.6) In nature and personality endowment the seraphim are just a trifle ahead of mortal races in the scale of creature existence. Indeed, when you are delivered from the flesh, you become very much like them.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begin to appreciate the seraphim, on the constellation spheres to enjoy them, while on Salvington they will share their places of rest and worship with you. Throughout the whole morontia and subsequent spirit ascent, your fraternity with the seraphim will be ideal; your companionship will be superb.

제 3 장. 미(未)계시 천사

그들이 어떤 면으로도 파라다이스 상승의 진

3. UNREVEALED ANGELS

38:3.1 (420.1) Numerous orders of spirit beings

화 계획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사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영 존재 계층들이 지역우주 영역에 두루 기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천사”라는 말은 필사자 생존 계획들의 작동과 매우 크게 관련되어 있는 우주 어머니 영의 세라핌천사 그리고 연관되는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에 고의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지역우주 안에는 진화적 필사자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에 속하는 그 우주 활동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도 참여하지 않는, 계시되지 않은 천사들인, 여섯 개의 관련된 다른 계층의 존재들이 봉사한다. 이 여섯 집단의 천사 동료들은 세라핌천사로 불린 적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활동 영들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이 개인성들은, 영적 상승과 완전 달성에 대한 사람의 진보 생애에 어떤 면으로도 관련되지 않는 관련사들, 네바돈의 행정-관리적 관련사들 그리고 다른 관련사들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function throughout the domains of the local universe that are unrevealed to mortals because they are in no manner connected with the evolutionary plan of Paradise ascension. In this paper the word “angel” is purposely limited to the designation of those seraphic and associated offspring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who are so largely concerned with the operation of the plans of mortal survival. There serve in the local universe six other orders of related beings, the unrevealed angels, who are not in any specific manner connected with those universe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Paradise ascent of evolutionary mortals. These six groups of angelic associates are never called seraphim, neither are they referred to as ministering spirits. These personalities are wholly occupi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other affairs of Nebadon, engagements which are in no way related to man's progressive career of spiritual ascent and perfection attainment.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세계

4. THE SERAPHIC WORLDS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일곱 1차 구체들의 아홉 번째 집단은 세라핌천사들의 세계들이다. 이들 세계 각각에는 여섯 개의 종속 위성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세라핌천사 훈련의 모든 위상에 헌신되는 특별 학교들이 있다.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 구체의 이 집단을 구성하는 49개 세계들 전체를 왕래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들은 일곱 개 중에서 오직 첫 번째 군(群)을 배타적으로 차지한다. 나머지 여섯 군(群)들은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천사 연관-동료들 중에서 여섯 계층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그러한 집단 각각은 이들 여섯 1차 세계들의 하나에 본부를 유지하고 여섯 개의 소속 위성들에서 특별 활동들을 수행한다. 각각의 천사 계층은 이러한 다양한 일곱 집단들의 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왕래한다.

38:4.1 (420.2) The ninth group of seven primary spheres in the Salvington circuit are the worlds of the seraphim. Each of these worlds has six tributary satellites, whereon are the special schools devoted to all phases of seraphic training. While the seraphim have access to all forty-nine worlds comprising this group of Salvington spheres, they exclusively occupy only the first cluster of seven. The remaining six clusters are occupied by the six orders of angelic associates unrevealed on Urantia; each such group maintains headquarters on one of these six primary worlds and carries on specialized activities on the six tributary satellites. Each angelic order has free access to all the worlds of these seven diverse groups.

이들 본부 세계들은 네바돈의 장엄한 영역들에 속해 있다; 세라핌천사 소유지들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광대함이다. 이곳에서 각각의 세라핌천사는 실제적인 집을 갖고 있으며, “집”이라는 말은 두 세라핌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산다.

38:4.2 (420.3) These headquarters worlds are among the magnificent realms of Nebadon; the seraphic estates are characterized by both beauty and vastness. Here each seraphim has a real home, and “home” means the domicile of two seraphim; they live in pairs.

물질아들과 필사 종족과 같은 남성과 여성은 아니지만, 세라핌천사들은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이다. 대부분의 할당된 과제에 있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두 천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회로연결이 안되었을 때는, 그들은 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도, 보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기원적 보완자를 지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한 관계적-연합은 1차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요구된다; 그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정말로 애정이 깊기는 하지만 성(性) 감정에 따른 특성은 없다.

38:4.3 (420.4) Though not male and female as are the Material Sons and the mortal races, seraphim are negative and positive. In the majority of assignments it requires two angels to accomplish the task. When they are not encircuited, they can work alone; neither do they require complements of being when stationary. Ordinarily they retain their original complements of being, but not necessarily. Such associations are primarily necessitated by function; they are not characterized by sex emotion, though they are exceedingly personal and truly affectionate.

지정된 집들 이외에, 세라핌천사들은 또한 소

38:4.4 (420.5) Besides designated homes, seraphim

대(小隊), 중대(中隊), 대대(大隊), 그리고 단위(單位) 본부를 갖고 있다. 그들은 1,000년마다 재결합하기 위해 모이며 그들이 창조된 시기에 따라서 모두가 나타난다. 만일 세라핌천사가 임무를 떠날 수 없는 의무들에 묶여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보완자와 교대로, 다른 출생일을 갖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면제되는 존재가 참석한다. 각각의 세라핌천사 동반자는 적어도 두 번에 한번은 재결합에 참석한다.

제 5 장 . 세라핌천사의 훈련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 학교들에서, 임관되지 않은 관찰자들로서 첫 1,000년을 보낸다. 그 다음 천 년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서 지낸다. 그들의 중앙 훈련 학교는 현재 첫 번째 100,000명의 네바돈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 지역우주의 기원적 또는 첫-탄생 천사이다. 네바돈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집단은 아발론에서 온 1,000명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 의해 훈련되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선배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왔다. 멜키세덱들 역시 모든 지역우주 천사들—세라핌천사, 케루빔, 그리고 사노빔—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큰 역할을 한다.

구원자별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서 이 훈련 기간이 완료되면, 세라핌천사들은 기존의 천사 조직의 집단들과 단위들에 동원되고 그리고 별자리 중 하나에 배정된다. 그들은 아직 사명활동 영들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천사 훈련의 임관(任官) 이전 위상에 이미 잘 접어들고 있다.

세라핌천사들은 진화하는 세계 중 가장 낮은 곳에서 관찰자로서 봉사함으로써, 사명활동 영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체험이 있은 후에 그들은 어떤 특정 지역체계에서의 봉사를 위해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고 자신들의 향상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배정된 별자리 본부의 연관 세계들로 돌아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이 있은 후에 그들은 지역체계들 중의 어떤 하나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진급된다. 어떤 네바돈 체계의 수도와 연관된 고안건축 세계들에서, 우리 세라핌천사들은 자신들의 훈련을 완결하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로서 귀역된다.

세라핌천사들은 일단 귀역되고 나면, 네바돈 전체, 심지어는 오르본톤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주에서의 그들의 일은 경계와 한계가 없다; 그들은 세계들의 물질적 창조체들과 가깝게 연관되고, 영적 개인성들의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 언제까지나 봉사하고 있으며, 영 세계의 이들 존재와 물질 영역의 필사자들 사이에 접촉을 이루고 있다.

also have group, company, battalion, and unit headquarters. They forgather for reunions every millennium and are all present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their creation. If a seraphim bears responsibilities which forbid absence from duty, she alternates attendance with her complement, being relieved by a seraphim of another birth date. Each seraphic partner is thereby present at least every other reunion.

5. SERAPHIC TRAINING

38:5.1 (420.6) Seraphim spend their first millennium as noncommissioned observers on Salvington and its associated world schools. The second millennium is spent on the seraphic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Their central training school is now presided over by the first one hundred thousand Nebadon seraphim, and at their head is the original or first-born angel of this local universe. The first created group of Nebadon seraphim were trained by a corps of one thousand seraphim from Avalon; subsequently our angels have been taught by their own seniors. The Melchizedeks also have a large part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all local universe angels — seraphim, cherubim, and sanobim.

38:5.2 (421.1) At the termination of this period of training on the seraphic worlds of Salvington, seraphim are mobilized in the conventional groups and units of the angelic organization and are assigned to some one of the constellations. They are not yet commissioned as ministering spirits, although they have well entered upon the precommissioned phases of angelic training.

38:5.3 (421.2) Seraphim are initiated as ministering spirits by serving as observers on the lowest of the evolutionary worlds. After this experience they return to the associate worlds of the headquarters of the assigned constellation to begin their advanced studies and more definitely to prepare for service in some particular local system. Following this general education they are advanced to the service of some one of the local systems. On the architectural worlds associated with the capital of some Nebadon system our seraphim complete their training and are commissioned as ministering spirits of time.

38:5.4 (421.3) When once seraphim are commissioned, they may range all Nebadon, even Orvonton, on assignment. Their work in the universe is without bounds and limitations;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worlds and are ever in the service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ual personalities, making contact between these beings of the spirit world and the mortals of the material realms.

제 6 장. 세라핌 천사의 조직

세라핌 천사의 본부에서 두 번째 천 년을 보낸 후에, 세라핌 천사들은 우두머리들 밑에 조직되어 12명의 집단들(12쌍, 24명의 세라핌 천사), 그리고 그 집단들 12개가 중대(144쌍, 288명의 세라핌 천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움직인다. 12개 중대는 한 명의 명령자 아래에서 한 개의 대대(1,728쌍 또는 3,456명의 세라핌 천사)를 구성하며, 한 지도자 아래의 12개 대대들이 하나의 세라핌 천사 단위 연대(20,736쌍 또는 41,472명의 개별존재들)와 같다, 한편 12개 단위 연대들은, 한 감독자의 명령에 따르며, 248,832쌍 또는 497,664명의 개별존재에 달하는 한 군단(軍團)을 구성한다. 예수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요청하면 열 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즉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천사 집단들을 언급한 것이었다.

12 군단의 천사들은 2,985,984쌍 또는 5,971,968명의 개별존재들에 이르는 한 무리를 구성하며, 그러한 열 두 무리들 (35,831,808쌍 또는 71,663,616명의 개별존재들)이 가장 큰 세라핌 천사 운영 조직, 하나의 천사 군대(軍隊)를 이룬다. 하나의 세라핌 천사 무리는 한 명의 천사장에 의해서 또는 조화-협동-지위의 다른 어떤 개인성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반면, 천사 군대(軍隊)들은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서 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직속 부관(副官)에 의해서 지도된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의 군대(軍隊)의 최극 명령자”, “무리들의 주님 하느님”인 네바돈의 주권자의 우두머리 집행자다.

구원자별에 개인성구현으로서의 무한한 영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봉사하지만,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세라핌 천사들과 다른 모든 지역우주 계층들은 주(主)아들의 주권에 따르도록 되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선포된 초우주 방송이 네바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그의 주권에 따르며; 그들은 “그의 막강한 천사들”이라고 명명되어 온 그 집단의 일부분이다.

제 7 장. 케루빔과 사노빔

모든 본질적인 자질에서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 천사와 비슷하다. 그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지만 운명이 항상 같지는 않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능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유능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애정이 깊고, 거의 인간이다. 그들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데, 따라서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인간 존재의 보다 진보적인 유형들에게 더욱 가깝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선천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전자(前者)는 에너지 양성 개인성이고; 후자(後者)는 에너지 음성 개

6. SERAPHIC ORGANIZATION

38:6.1 (421.4) After the second millennium of sojourn at seraphic headquarters the seraphim are organized under chiefs into groups of twelve (12 pairs, 24 seraphim), and twelve such groups constitute a company (144 pairs, 288 seraphim), which is commanded by a leader. Twelve companies under a commander constitute a battalion (1,728 pairs or 3,456 seraphim), and twelve battalions under a director equal a seraphic unit (20,736 pairs or 41,472 individuals), while twelve units, subject to the command of a supervisor, constitute a legion numbering 248,832 pairs or 497,664 individuals. Jesus alluded to such a group of angels that nigh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hen he said: “I can even now ask my Father, and he will presently give me more than twelve legions of angels.”

38:6.2 (421.5) Twelve legions of angels comprise a host numbering 2,985,984 pairs or 5,971,968 individuals, and twelve such hosts (35,831,808 pairs or 71,663,616 individuals) make up the largest operating organization of seraphim, an angelic army. A seraphic host is commanded by an archangel or by some other personality of co-ordinate status, while the angelic armies are direct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r by other immediate lieutenants of Gabriel. And Gabriel i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rmies of heaven,” the chief executive of the Sovereign of Nebadon, “the Lord God of hosts.”

38:6.3 (421.6) Though serving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alized on Salvington,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seraphim and all other local universe orders have become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Master Son. Even when Michael was born of the flesh on Urantia, there issued the superuniverse broadcast to all Nebadon which proclaimed, “And let all the angels worship him.” All ranks of angels are subject to his sovereignty; they are a part of that group which has been denominated “his mighty angels.”

7. CHERUBIM AND SANOBIM

38:7.1 (422.1) In all essential endowments cherubim and sanobim are similar to seraphim. They have the same origin but not always the same destiny. They are wonderfully intelligent, marvelously efficient, touchingly affectionate, and almost human. They are the lowest order of angels, hence all the nearer of kin to the more progressive types of human beings on the evolutionary worlds.

38:7.2 (422.2) Cherubim and sanobim are inherently associated, functionally united. One is an energy positive personality; the other, energy negative.

인성이다. 오른쪽 방향의 편향자(偏向者) 또는 양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케루빔—선배 또는 통제하는 개인성—이다. 왼쪽 방향의 편향자(偏向者) 또는 음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사노빔—보완적 존재—이다. 각각의 천사 유형은 단독 기능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봉사한다. 그들의 세라핌천사 지도자들과 상관없이 봉사할 때, 그들은 상호 접촉에 더 많이 의존하며 항상 함께 기능한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도움자들이며, 세라핌천사의 일곱 계층 모두에게는 이러한 종속 보좌관들이 제공되어 있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이러한 역량에서 긴 세월 동안 봉사하지만, 그들은 지역우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임무에서는 세라핌천사와 동행하지 않는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체계들의 개별 세계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영 근로자들이다. 비(非)개인적 임무와 그리고 긴급사태에서, 그들은 세라핌천사 쌍을 대신하여 봉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 관여하는 천사들로서는, 임시적으로도 기능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것은 세라핌천사의 독점적 특권이다.

행성에 배정되었을 때, 케루빔은 행성 관습들과 언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지역 훈련 과정에 들어간다.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은 모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들이 기원된 지역우주의 언어와 그들의 탄생 초우주의 언어가 그것들이다. 그들은 영역의 학교들에서 공부함으로써 추가적인 말들을 습득한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와 영 존재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마찬가지로, 자아-향상에 대한 노력에 계속하여 참여한다. 힘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도하는 종속 존재들 경우에만 진보가 불가능하다; 모든 창조체들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개인성 의지 작용을 소유한다.

케루빔과 사노빔은 본성적으로 실존의 모론시아 차원에 매우 가까우며, 그들은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권역의 경계지역 일에서 가장 효과적임이 증명된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은, 하보나 봉사원들과 화해자 위원들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네 번째 창조체”가 특징이 되어있다. 매번 네 번째 케루빔과 매번 네 번째 사노빔은 준(?)물질적, 실존의 모론시아 차원과 매우 명백하게 흡사하다.

이들 네 번째의 천사 창조체들은 세라핌천사의 우주 그리고 행성 활동들의 더욱 실질적 위상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모론시아 케루빔은 또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많은 필요불가결한 경계지역 과업들을 수행하며 많은 숫자로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봉사에 배정된다.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진화 행성에 대한 관계와 비슷하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이 모론시아 케루빔들은 종종 중도(中途) 창조체들과 연락하여 일하곤 한다. 케루빔들과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뚜렷하게

The right-hand deflector, or positively charged angel, is the cherubim — the senior or controlling personality. The left-hand deflector, or negatively charged angel, is the sanobim — the complement of being. Each type of angel is very limited in solitary function; hence they usually serve in pairs. When serving independently of their seraphic directors, they are more than ever dependent on mutual contact and always function together.

38:7.3 (422:3) Cherubim and sanobim are the faithful and efficient aids of the seraphic ministers, and all seven orders of seraphim are provided with these subordinate assistants. Cherubim and sanobim serve for ages in these capacities, but they do not accompany seraphim on assignments beyond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38:7.4 (422:4) The cherubim and sanobim are the routine spirit workers on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systems. On a nonpersonal assignment and in an emergency, they may serve in the place of a seraphic pair, but they never function, even temporarily, as attending angels to human beings; that is an exclusive seraphic privilege.

38:7.5 (422:5) When assigned to a planet, cherubim enter the local courses of training, including a study of planetary usages and languages.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all bilingual, speaking the language of the local universe of their origin and that of their native superuniverse. By study in the schools of the realms they acquire additional tongues. Cherubim and sanobim, like seraphim and all other orders of spirit beings, are continuously engaged in efforts at self-improvement. Only such as the subordinate beings of power control and energy direction are incapable of progression; all creatures having actual or potential personality volition seek new achievements.

38:7.6 (422:6) Cherubim and sanobim are by nature very near the morontia level of existence, and they prove to be most efficient in the borderland work of the physical, morontial, and spiritual domains. These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re characterized by “fourth creatures” much as are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Every fourth cherubim and every fourth sanobim are quasi-material, very definitely resembling the morontia level of existence.

38:7.7 (422:7) These angelic fourth creatures are of great assistance to the seraphim in the more literal phases of their universe and planetary activities. Such morontia cherubim also perform many indispensable borderline tasks on the morontia training worlds and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Morontia Companions in large numbers. They are to the morontia spheres about what the midway creatures are to the evolutionary planets.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morontia cherubim frequently work in liaison with the midway

구분된 존재 계층들이다; 그들은 서로 다르게 기원되었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creatures. Cherubim and midway creatures are distinctly separate orders of beings; they have dissimilar origins, but they disclose great similarity in nature and function.

제 8 장. 케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케루빔과 사노빔을 지위 증진으로 인도하는, 향상하는 봉사의 수많은 큰길들이 열려 있으며 그것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포용에 의해 더욱 현저히 증강될 수 있다. 진화적인 잠재를 고려할 때 케루빔과 사노빔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들이 있다:

1. 상승 후보자들. 이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세라핌천사의 지위가 될 후보자들이다. 이 계층의 케루빔과 사노빔은 선천적 자질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적용과 체험 면에 있어서 충분한 세라핌천사 지위를 달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하다.

2. 중간-위상 케루빔. 모든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이 상승 잠재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들은 천사의 창조들에서 선천적으로 제한된 존재들이다. 좀더 재능 있는 개별존재들이 한정된 세라핌천사의 봉사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케루빔들과 사노빔들로 남을 것이다.

3. 모론시아 케루빔. 천사 계층 중에서 이 “네 번째 창조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준(?)물질적 특징을 지닌다. 최극존재의 완성된 사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중간-위상 형제들 대부분과 함께 케루빔들과 사노빔들로 계속 지낼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들이 성장 잠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상승 후보자들은 우주 세라핌천사 봉사의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케루빔 중에서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많은 존재들은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들에게 배속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세라핌천사 선배들이 남겨두고 떠날 때, 맨션세계 교사들의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직통선에 놓여진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필사자 피보호자들이 모론시아 삶을 달성하면, 케루빔과 사노빔을 조력자로서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진화 세라핌천사들이 구원자별과 파라다이스를 향해 떠나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들은 그들이 네바돈 구역 밖으로 나갈 때, 이전의 종속자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남겨지게 된 케루빔과 사노빔은 대개 우주 어머니 영에게 포용되며, 그리하여 세라핌천사 지위 달성에서 맨션세계 교사의 그것과 동등한 차원을 성취한다.

한번-포용된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이, 맨션세계 교사들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구체들에서 오랫동안

8. EVOLUTION OF CHERUBIM AND SANOBIM

38:8.1 (423.1) Numerous avenues of advancing service are open to cherubim and sanobim leading to an enhancement of status, which may be still further augmented by the embrace of the Divine Minister. There are three great classes of cherubim and sanobim with regard to evolutionary potential:

38:8.2 (423.2) 1. *Ascension Candidates*. These beings are by nature candidates for seraphic status. Cherubim and sanobim of this order are brilliant, though not by inherent endowment equal to the seraphim; but by application and experience it is possible for them to attain full seraphic standing.

38:8.3 (423.3) 2. *Mid-phase Cherubim*. All cherubim and sanobim are not equal in ascension potential, and these are the inherently limited beings of the angelic creations. Most of them will remain cherubim and sanobim, although the more gifted individuals may achieve limited seraphic service.

38:8.4 (423.4) 3. *Morontia Cherubim*. These “fourth creatures” of the angelic orders always retain their quasi-material characteristics. They will continue on as cherubim and sanobim, together with a majority of their mid-phase brethren, pending the completed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38:8.5 (423.5) While the second and third groups are somewhat limited in growth potential, the ascension candidates may attain the heights of universal seraphic service. Many of the more experienced of these cherubim are attached to the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and are thus placed in direct line for advancement to the status of Mansion World Teachers when deserted by their seraphic seniors. Guardians of destiny do not have cherubim and sanobim as helpers when their mortal wards attain the morontia life. And when other types of evolutionary seraphim are granted clearance for Seraphington and Paradise, they must forsake their former subordinates when they pass out of the confines of Nebadon. Such deserted cherubim and sanobim are usually 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us achieving a level equivalent to that of a Mansion World Teacher in the attainment of seraphic status.

38:8.6 (423.6) When, as Mansion World Teachers, the once-embraced cherubim and sanobim have long served on the morontia spheres, from the

봉사하였을 때, 그리고 구원자별에 있는 그들의 무리단이 초과 모집되었을 때, 빛나는 새벽별은 이들 시간 창조체의 신실한 일꾼들을 자기 앞으로 출두하도록 호출한다. 개인성 변환에 대한 맹세가 실시되며; 그때로부터 진급된 이 선임 케루빔들과 사노빔들은 7,0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용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포용된 때로부터 그들은 충만한-성장의 세라핌천사로 창발한다. 그때부터 세라핌천사의 충만하고도 완성된 생애가, 그것의 모든 파라다이스 가능성들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러한 케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린다. 그러한 천사들은 어떤 필사 존재에게 운명의 수호자로 배정될 수도 있으며, 만일 그 필사자 피보호자가 생존을 달성하면, 그들은 천사별로 그리고 세라핌천사 달성의 일곱 번째 순환계들, 심지어는 파라다이스와 최종의 무리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 9 장. 중도(中途) 창조체들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삼중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영구 시민신분의 조직들로 분류되는 반면, 기능적으로는 시간의 사명활동 영역로 알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공간의 개별 세계들에서 필사자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천사 무리와 긴밀하고도 효과적인 관계적-연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독특한 창조체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에서 출현하며 유란시아와 같은 십진법 소수, 즉 생명-실험 행성들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중도자(中途者)들은—1차와 2차—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다음 기법에 의해 나타난다:

1. 1차 중도자(中途者)들은, 보다 더 영적인 집단인데, 행성영주들의 변경된 상승-필사자 참모들로부터 균일하게 출현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층이다. 1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숫자는 항상 5만 명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을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가질 수 없다.

2. 2차 중도자(中途者)들은, 이 창조체들 중에서 보다 더 물질적인 집단인데, 평균적으로 5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들마다 숫자가 크게 다르다. 그들은 행성의 생물학적 향상자(向上者)인 아담들과 이브들로부터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자손으로부터 다양하게 출현한다.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이 2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생산에 관여된 서로 다른 기법들은 적어도 24가지에 이른다. 유란시아에서 이 집단이 기원된 방법은 특이하고도 비범한 것이었다.

이들 집단 중 어떤 것도 진화에서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둘 모두 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있는 본질적 모습이며, 적절한 시

lowest to the highest, and when their corps on Salvington is overrecruite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ummons these faithful servants of the creatures of time to appear in his presence. The oath of personality transformation is administered; and thereupon, in groups of seven thousand, these advanced and senior cherubim and sanobim are re-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From this second embrace they emerge as full-fledged seraphim. Henceforth, the full and complete career of a seraphim, with all of its Paradise possibilities, is open to such reborn cherubim and sanobim. Such angels may be assigned as guardians of destiny to some mortal being, and if the mortal ward attains survival, then do they become eligible for advancement to Seraphington and the seven circles of seraphic attainment, even to Paradise and the Corps of the Finality.

9. THE MIDWAY CREATURES

38:9.1 (424.1) The midway creatures have a threefold classification: They are properly classified with the ascending Sons of God; they are factually grouped with the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while they are functionally reckoned with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because of their intimate and effective association with the angelic hosts in the work of serving mortal man on the individual worlds of space.

38:9.2 (424.2) These unique creatures appear on the majority of the inhabited worlds and are always found on the decimal or life-experiment planets, such as Urantia. Midwayers are of two types — primary and secondary — and they appear by the following techniques:

38:9.3 (424.3) 1. *Primary Midwayers*, the more spiritual group, are a somewhat standardized order of beings who are uniformly derived from the modified ascendant-mortal staffs of the Planetary Princes. The number of primary midway creatures is always fifty thousand, and no planet enjoying their ministry has a larger group.

38:9.4 (424.4) 2. *Secondary Midwayers*, the more material group of these creatures, vary greatly in numbers on the different worlds, though the average is around fifty thousand. They are variously derived from the planetary biologic uplifters, the Adams and Eves, or from their immediate progeny. There are no less than twenty-four diverse techniqu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se secondary midway creatur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 mode of origin for this group on Urantia was unusual and extraordinary.

38:9.5 (424.5) Neither of these groups is an evolutionary accident; both are essential features in the predetermined plans of the universe

기에 진화하는 세계에서의 그들의 출현은 감독하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 설계와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다.

1차 중도자들은 천사의 기법(技法)에 의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지적 지위에서 한결같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오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인, 경배의 영과 지혜의 영만이 2차 집단에게 사명활동할 수 있다.

2차 중도자들은 아담의-기법에 의해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영적으로 순환회로에 들며, 모론시아 과도기 유형의 마음을 지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그들은 네 가지 물리적 유형들로 구분되고, 영적으로는 일곱 계층으로 구분되며, 마지막 두 가지 보조 영들과 모론시아 마음의 공동 사명활동에 대한 지적 반응에서의 열두 차원이 있다. 이들 다양성이 그들 활동의 그리고 행성에서의 배정의 차이를 결정한다.

1차 중도자들은 필사자 보다는 천사와 더 흡사하다; 2차 계층들은 필사 존재와 훨씬 더 흡사하다. 그 각각은 그들의 복합적 행성 임무들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상대에게 매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다. 1차 사명활동자들은 모론시아와 영-에너지 통제자들과 마음 순환회로자들. 둘 모두와 연락의 협동을 성취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오직 물리통제자들과 물질-회로 조종자들과만 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중도자 계층이 다른 상대와의 접촉으로 완전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어떤 집단도, 그로 인하여, 물질적 세계들의 총체적 물리적 힘으로부터 우주 에너지들의 과도기 위상들을 거쳐 천상 영역들의 보다 높은 영-실체 기체에 이르기까지 확정되는, 전체 에너지 범위의 실천적 활용을 성취할 수 있다.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공백은 필사자 사람,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 모론시아 케루빔, 중간-위상 케루빔, 그리고 세라핌천사의 연속적 관계적-연합에 의해 완전하게 다리가 놓아진다.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들 다양한 차원들은 신성한 생각 조절자의 관찰되지 않는 그리고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 확실히 어느 정도 통합되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1차 중도자들이 정보 무리단으로서 그리고 행성영주를 대신하는 천상의 예능인들로서 자신들의 봉사를 계속하는 반면, 2차 사명활동자들은 진보적인 행성 문명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아담의-통치체제와의 협동을 계속한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성영주의 배신과 물질아들의 실패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체계 주권자의 피보호자들이 되며 행성의 직무 대행 보호관리자의 안내 지도에 따라 봉사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는 오직 3개

architects, and their appearance on the evolving worlds at the opportune juncture i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designs and developmental plans of the supervising Life Carriers.

38:9.6 (424.6) Primary midwayers are energized intellectually and spiritually by the angelic technique and are uniform in intellectual status.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make no contact with them; and only the sixth and the seventh, the spirit of worship and the spirit of wisdom, are able to minister to the secondary group.

38:9.7 (424.7) Secondary midwayers are physically energized by the Adamic technique, spiritually encircled by the seraphic, and intellectually endowed with the morontia transition type of mind. They are divided into four physical types, seven orders spiritually, and twelve levels of intellectual response to the joint ministry of the last two adjutant spirits and the morontia mind. These diversities determine their differential of activity and of planetary assignment.

38:9.8 (424.8) Primary midwayers resemble angels more than mortals; the secondary orders are much more like human beings. Each renders invaluable assistance to the other in the execution of their manifold planetary assignments. The primary ministers can achieve liaison co-operation with both morontia- and spirit-energy controllers and mind circuiters. The secondary group can establish working connections only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aterial-circuit manipulators. But since each order of midwayer can establish perfect synchrony of contact with the other, either group is thereby able to achiev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entire energy gamut extending from the gross physical power of the material worlds up through the transition phases of universe energies to the higher spirit-reality forces of the celestial realms.

38:9.9 (425.1) The gap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worlds is perfectly bridged by the serial association of mortal man, secondary midwayer, primary midwayer, morontia cherubim, mid-phase cherubim, and seraphim.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an individual mortal these diverse levels are undoubtedly more or less unified and made personally meaningful by the unobserved and mysterious operations of the divine Thought Adjuster.

38:9.10 (425.2) On normal worlds the primary midwayers maintain their service as the intelligence corps and as celestial entertainers in behalf of the Planetary Prince, while the secondary ministers continue their co-operation with the Adamic regime of furthering the cause of progressive planetary civilization. In case of the def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failure of the Material Son, as occurred on Urantia, the midway creatures become the wards of the

의 다른 세계에서만, 유란시아의 연합된 중도(中途) 사명활동자들이 하는 것처럼, 통합 지도체제 아래에서 이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기능한다.

1차 그리고 2차 중도자들 모두의 행성에서의 활동은 우주의 수많은 개별 세계들에서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행성들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고립된 구체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의무들과는 매우 다르다.

1차 중도자들은 행성의 역사가들이고, 그들은 행성영주가 도착한 때로부터 빛과 생명이 정착되는 시기까지 야외극을 꾸미고 행성 역사에 대한 묘사를 계획하는데,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행성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다.

중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긴 기간 동안 머물지만, 그들의 책임에 신실하였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창조자 아들의 주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랜 동안의 봉사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세계에서 물질적 필사자들에 대해 인내심으로 사명활동 하였던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인정을 받은 모든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반열(班列)에 들어갈 것이며, 동물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필사자들, 땅의 형제들, 그들이 행성에 오래 머물면서 그토록 선망하면서 보호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효과적으로 봉사하였던 그들과 일행을 이루어 파라다이스 상승의 긴 모험에 마땅히 함께 할 것이다.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무리 우두머리의 요청에 의해 활동하는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System Sovereign and serve under the directing guidance of the acting custodian of the planet. But on only three other worlds in Satania do these beings function as one group under unified leadership as do the united midway ministers of Urantia.

38:9.11 (425.3) The planetary work of both primary and secondary midwayers is varied and diverse on the numerous individual worlds of a universe, but on the normal and average planets their activitie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duties which occupy their time on isolated spheres, such as Urantia.

38:9.12 (425.4) The primary midwayers are the planetary historians who, from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age of settled light and life, formulate the pageants and design the portrayals of planetary history for the exhibits of the planets on the system headquarters worlds.

38:9.13 (425.5) Midwayers remain for long periods on an inhabited world, but if faithful to their trust, they will eventually and most certainly be recognized for their agelong service in maintaining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 they will be duly rewarded for their patient ministry to the material mortals on their world of time and space. Sooner or later all accredited midway creatures will be mustered into the rank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and will be duly initiated into the long adventure of the Paradise ascent in company with those very mortals of animal origin, their earth brethren, whom they so jealously guarded and so effectively served during the long planetary sojourn.

38:9.14 (425.6) [Presented by a Melchizedek acting by request of the Chief of the Seraphic Hosts of Nebadon.]

제 39 편 세라핌천사 무리

⇨ 038

유랜시아 책

040 ⇨

부 II. 지역우주

제 39 편 세라핌천사 무리

섹션

소개

- 제 1 장. 최극 세라핌천사
- 제 2 장. 우수 세라핌천사
- 제 3 장. 감독자 세라핌천사
- 제 4 장.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
- 제 5 장. 행성 조력자
- 제 6 장. 과도기 사명활동자
- 제 7 장. 미래의 세라핌천사
- 제 8 장. 세라핌천사의 운명
- 제 9 장. 세라핌천사 완성의 무리단

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한한 영은, 지역우주 본부에서의 개인성구현으로, 균일하게 완전한 세라핌천사들을 산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세라핌천사 자손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진화하는 체험적 신(神)의 알려지지 않은 간섭의 결과일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라핌천사들이 교육적인 시험과 훈련하는 단련을 받아올 때 그들이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들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분류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1. 최극 세라핌천사.
2. 최상 세라핌천사.
3. 감독자 세라핌천사.
4.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
5. 행성 조력자들.
6.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7. 미래의 세라핌천사들.

PAPER 39

THE SERAPHIC HOSTS

SECTIONS

Introduction

1. Supreme Seraphim
2. Superior Seraphim
3. Supervisor Seraphim
4. Administrator Seraphim
5. Planetary Helpers
6. Transition Ministers
7. Seraphim of the Future
8. Seraphic Destiny
9.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INTRODUCTION

39:0.1 (426.1) AS FAR as we are cognizant,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alized on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intends to produce uniformly perfect seraphim, but for some unknown reason these seraphic offspring are very diverse. This diversity may be a result of the unknown interposition of evolving experiential Deity; if so, we cannot prove it. But we do observe that, when seraphim have been subjected to educational tests and training discipline, they unfailingly and distinctly classify into the following seven groups:

39:0.2 (426.2) 1. Supreme Seraphim.

39:0.3 (426.3) 2. Superior Seraphim.

39:0.4 (426.4) 3. Supervisor Seraphim.

39:0.5 (426.5) 4. Administrator Seraphim.

39:0.6 (426.6) 5. Planetary Helpers.

39:0.7 (426.7) 6. Transition Ministers.

39:0.8 (426.8) 7. Seraphim of the Future.

하나의 세라핌천사가 다른 어떤 집단의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천사는 처음에는 기원적이고 선천적인 분류 집단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할 당시에 나의 세라핌천사 동료인 마노티아는 최극 세라핌천사였고 한때는 오직 최극 세라핌천사로서만 기능하였다. 적용과 헌신된 봉사 면에서 볼 때, 그녀는 일곱 가지 세라핌천사 임무들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였는데, 세라핌천사에게 개방된 활동의 거의 모든 큰길에서 일하였으며, 현재는 유란시아에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 연관-동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 존재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사명활동을 위해 창조된 재능이, 비교적 낮은 봉사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음을 때로 발견한다. 사람은 어떤 도움도 없는 아기로 삶을 시작한다; 모든 필사자 달성은 모든 체험적 필요조건들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라핌천사들에게는 그러한 성인(成人) 이전의 삶—어린 시절—이 없다. 아무튼 그들은 체험적 창조체들이며, 체험에 의해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라핌천사의 노력 속에서 기능적 기술을 체험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하고 선천적인 자질을 증강시킬 수 있다.

임명을 받은 후에, 세라핌천사는 자신들의 선천적 집단의 예비자로 지정된다. 행성의 그리고 행정-관리자 지위의 그들은 흔히 기원적으로 분류된 대로 오랜 기간 봉사하지만, 선천적 기능차원이 높을수록 천사 사명활동자들은 우주 업무의 보다 낮은 계층에 배치되려고 더욱 끈질기게 추구한다. 특별히 그들은 행성 조력자의 예비자에 배정되기를 바라며, 만일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진화 세계의 행성영주의 본부에 부속된 천상의 학교들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지방 관습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세라핌천사들은 인간 존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특정한 개인성 속성에서 너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바닥으로부터, 가능한 가장 낮은 차원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출발하기를 갈망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체험적 운명의 가능한 가장 높은 차원을 성취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제 1 장. 최극 세라핌천사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 천사들의 계시된 일곱 계층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들은 일곱 개의 집단으로 기능하는데, 그 각각은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아들-영 사명활동자들. 최극 세라핌천사 중 첫 번째 집단은 지역우주에서 거주하고 기능하는 높은 아들들과 영-기원 존재들에 대한 봉사에 배정된다. 이 집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은 또한 우

39:0.9 (426.9) To say that any one seraphim is inferior to an angel of any other group would hardly be true. Nevertheless every angel is at first service-limited to the group of original and inherent classification. My seraphic associate in the preparation of this statement, Manotia, is a supreme seraphim and onetime functioned only as a supreme seraphim. By application and devoted service she has, one by one, achieved all seven of the seraphic services, having functioned in well-nigh every avenue of activity open to a seraphim, and now holds the commission of associate chief of seraphim on Urantia.

39:0.10 (426.10) Human beings sometimes find it hard to understand that a created capacity for higher-level ministry does not necessarily imply ability to function on relatively lower service levels. Man begins life as a helpless infant; hence every mortal attainment must embrace all experiential prerequisites; seraphim have no such preadult life — no childhood. They are, however, experiential creatures, and by experience and through additional education they can augment their divine and inherent endowment of ability by the experiential acquirement of functional skill in one or more of the seraphic services.

39:0.11 (426.11) After being commissioned,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reserves of their inherent group. Those of planetary and administrator status often serve for long periods as originally classified, but the higher the inherent function level, the more persistently do the angelic ministers seek assignment to the lower orders of universe service. Especially do they desire assignment to the reserves of the planetary helpers, and if successful they enroll in the celestial schools attach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of some evolutionary world. Here they begin the study of the languages, history, and local habits of the races of mankind. Seraphim must acquire knowledge and gain experience much as do human beings. They are not far removed from you in certain personality attributes. And they all crave to start at the bottom, on the lowest possible level of ministry; thus may they hope to achieve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experiential destiny.

1. SUPREME SERAPHIM

39:1.1 (427.1) These seraphim are the highest of the seven revealed orders of local universe angels. They function in seven groups, each of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angelic ministe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1.2 (427.2) 1. *Son-Spirit Ministers.* The first group of the supreme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high Sons and Spirit-origin beings resident and functioning in the local universe. This

주 아들과 우주 영을 섬기며,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연합된 의지의 우주 집행자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정보무리단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높은 아들과 영들에게 배정됨으로써, 이 세라핌천사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신성한 자손인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의 멀리 퍼지는 봉사들에 자연적으로 연관된다.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은 높은 조직이며 체험된 계층인 이 세라핌천사를 통해 모든 치안법관 임무 그리고 증여(贈與) 임무에 항상 참여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때에 새로운 시대의 개시와 행성의 한 섭리시대 종료에 관련된 특별한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대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에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판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증여 수행원. 창조자 아들들을 제외한,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은 증여 임무를 수행할 때 144명의 증여 수행원을 항상 대동한다. 이 144명의 천사들은 증여 임무와 연관될 다른 모든 아들-영 사명 활동자들의 우두머리들이다. 행성 증여에 있어서 육신화된 하느님의 아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 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세라핌천사들 전체는 144명의 증여 수행원에 의해 조직화되고 지도를 받을 것이다. 보다 높은 계층의 천사들, 초(超)천사와 2품천사 역시 참석한 무리의 일부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임무들이 세라핌천사의 그것들과 다를지라도, 이 활동들 전체는 증여 수행원에 의해 조화-협동을 이룰 것이다.

이 증여 수행원은 완성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모두 천사별 순환계들을 지나갔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의 자녀들의 발전을 위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증여들과 연관된 비상사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을 특별히 받아왔다.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은 모두 들췌근원이며 중심인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용납과 파라다이스를 성취하였다.

세라핌천사들은 육신화된 아들들의 임무에 대한 배정과 영역들의 필사자들에 대한 운명 수호자로서 배속을 똑같이 열망한다; 후자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세라핌천사 신분증인 반면, 증여 수행원은 파라다이스 달성의 완성 세라핌천사의 가장 높은 지역우주 봉사를 성취해왔다.

2. 법정충고자들. 이들은 화해자들로부터 영역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결 계층들에 배속된 세라핌천사 충고자들 그리고 조력자들이다. 가혹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그러한

group of angelic ministers also serve the Universe Son and the Universe Spirit and are closely affiliated with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universe chief executive of the united wills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39:1.3 (427.3) Being of assignment to the high Sons and Spirits, these seraphim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 far-flung services of the Paradise Avonals, the divine offspring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Paradise Avonals are always attended on all magisterial and bestowal missions by this high and experienced order of seraphim, who are at such times devoted to organizing and administering the special work connected with the termination of one planetary dispensation and the inauguration of a new age. But they are not concerned in the work of adjudication which might be incidental to such a change in dispensations.

39:1.4 (427.4) *Bestowal Attendants.* Paradise Avonals, but not Creator Sons, when on a bestowal mission are always accompanied by a corps of 144 bestowal attendants. These 144 angels are the chiefs of all other Son-Spirit ministers who may be associated with a bestowal mission. There might possibly be legions of angels subject to the command of an incarnated Son of God on a planetary bestowal, but all these seraphim would be organized and directed by the 144 bestowal attendants. Higher orders of angels, supernaphim and seconaphim, might also form a part of the attending host, and though their missions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seraphim, all these activities would be co-ordinated by the bestowal attendants.

39:1.5 (427.5) These bestowal attendants are completion seraphim; they have all traversed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have attained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And they have been further especially trained to meet the difficulties and to cope with the emergencies associated with the bestowals of the Sons of God for the advancement of the children of time. Such seraphim have all achieved Paradise and the personal embrace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Eternal Son.

39:1.6 (427.6) Seraphim equally crave assignment to the missions of the incarnated Sons and attachment as destiny guardians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the latter is the surest seraphic passport to Paradise, while the bestowal attendants have achieved the highest local universe service of the completion seraphim of Paradise attainment.

39:1.7 (428.1) 2. *Court Advisers.* These are the seraphic advisers and helpers attached to all orders of adjudication, from the conciliators up to the highest tribunals of the realm. It is not the

재판소들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정직한 견해 차이들을 판결하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영속하는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법정참고자들의 임무가 있는데: 필사 창조체들에 대한 모든 고발이 공의(公義)로서 판결을 받고 자비로운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은 높은 위원들, 지역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융합 상승 필사자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라핌천사 법정 참고자들은 필사자들의 옹호자로서 광범위하게 봉사한다. 영역들의 낮은 창조체들에게 부당하게 되는 어떤 처분이 존재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신성한 완전을 향하여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불이행에 대한 판결을 공의(公義)가 요구하는 반면, 자비는 그러한 모든 실족이 창조체 본성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요구한다. 이 천사들은 신성한 공의(公義)—개인적인 동기들과 인종적인 경향들 밑에 숨겨진 사실들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공정성—속에 선천적인 자비의 요소를 설명하고 예증하는 존재들이다.

이 계층의 천사들은 행성영주들의 협의회들로부터 지역우주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반면,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들에 속한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심지어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서까지, 오르본톤의 보다 높은 영역들에서 기능한다.

3. 우주 방향안내자들. 이들은 그 상승하는 창조체들 전체의 참된 친구들인 동시에 졸업-이후 과정의 조언자들인데, 그 창조체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우주 안에서, 오르본톤이라는 광대한 초우주 속에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영 모험여행의 끝자락 위에 서있으면서 구원자별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멈추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수많은 상승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간 감정과 비교함으로써만 필사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느낌을 갖고 있다. 뒤에는 성취의 영역들, 모론시아 달성과 오랫동안의 봉사에 의해 더욱 친하게 된 영역들이 있다; 앞에는 더욱 크고 광대한 우주의 도전적인 신비가 놓여 있다.

우주 방향안내자들의 과업은, 우주 봉사의 달성된 차원으로부터 달성되지 않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최초-단계에 영 존재로 서게 된 실현에서, 그곳이 지역우주 모론시아 상승의 정점이자 끝이 아니고 오히려 파라다이스에 있는 우주 아버지께 이르는 영적 상승의 긴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곳으로, 실현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의미들과 가치들의 이해 안에서, 주마등같은 변화무쌍한 조절들을 만드는 것에서 이들 순례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 세라핌천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일원들인, 천사별 졸업자들 대부분은, 다음 우주 시대의 관계들을 위하여 네바돈의 창조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관계된 특정의 구원자별 학교들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치는 일에

purpose of such tribunals to determine punitive sentences but rather to adjudicate honest differences of opinion and to decree the everlasting survival of ascending mortals. Herein lies the duty of the court advisers: to see that all charges against mortal creatures are stated in justice and adjudicated in mercy. In this work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gh Commissioners, Spirit-fused ascendant mortals serving in the local universe.

39:1.8 (428.2) The seraphic court advisers serve extensively as defenders of mortals. Not that there ever exists any disposition to be unfair to the lowly creatures of the realms, but while justice demands the adjudication of every default in the climb towards divine perfection, mercy requires that every such misstep be fairly ad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creature nature and the divine purpose. These angels are the exponents and exemplification of the element of mercy inherent in divine justice — of fairnes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underlying facts of personal motives and racial tendencies.

39:1.9 (428.3) This order of angels serves from the councils of the Planetary Princes to the highest tribunals of the local universe, while their associate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function in the higher realms of Orvonton, even to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39:1.10 (428.4) 3. *Universe Orientators*. These are the true friends and postgraduate counselors of all those ascending creatures who are pausing for the last time on Salvington, in their universe of origin, as they stand on the brink of the spirit adventure stretching out before them in the vast superuniverse of Orvonton. And at such a time many an ascender has a feeling which mortals could understand only by comparison with the human emotion of nostalgia. Behind lie the realms of achievement, realms grown familiar by long service and morontia attainment; ahead lies the challenging mystery of a greater and vaster universe.

39:1.11 (428.5) It is the task of the universe orientators to facilitate the passage of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attained to the unattained level of universe service, to help these pilgrims in making those kaleidoscopic adjustments in the comprehension of meanings and values inherent in the realization that a first-stage spirit being stands, not at the end and climax of the local universe morontia ascent, but rather at the very bottom of the long ladder of spiritual ascent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39:1.12 (428.6) Many of the Seraphington graduates, membe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who are associated with these seraphim, engage in extensive teaching in certain Salvington schools concerne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creatures of

종사한다.

4. 교습 조연자들. 이 천사들은 지역우주의 영적인 교육 부대의 훌륭한 보좌관들이다. 교습 조연자들은 멜기세덱들과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부터 아래로는 상승자 삶의 단계들에 있어서 바로 그들의 뒤에 있는 그들의 동족들에게 조력자들로서 배정된 모론시아 필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선생들에게 비서 역할을 한다. 너희는 예루셈을 둘러싸는 일곱 맨션세계들 중 어떤 하나에서, 가르치는 이들 연관-동료 세라핌천사들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이들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의 수많은 교육(敎育) 그리고 훈련 기관들의 구역 우두머리들의 연관-동료들이 되며, 그들은 지역체계들의 일곱 훈련 세계들 그리고 별자리들의 70개 교육 구체들의 교수진에 많은 숫자로 배속되어 있다. 이러한 봉사는 아래로 개별적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시간(時間) 세계의 참되고 성별된 선생들까지도 최극 세라핌천사들의 이 조연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때로는 시중을 받는다.

창조자 아들의 네 번째 창조체 증여는 네바돈의 최극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교습 조연자들과 비슷했다.

5. 배치 지휘자들. 144명의 최극 세라핌천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가, 창조체가 거주하는 진화 그리고 고안건축 구체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에 의해 수시로 선출된다. 이것은 모든 구체에서 가장 높은 천사 협의회이며, 세라핌천사의 봉사와 임무의 자아-방향 결정하는 위상들을 조화-협동한다. 이 천사들은 직무 수행중이거나 경배에 참여한 모든 세라핌천사 단체들을 통솔한다.

6. 기록자들. 이들은 최극 세라핌천사를 위한 공식 기록자들이다. 이 높은 천사들 중 많은 숫자는 충분히 발달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머지 천사들은 보다 낮거나 보다 적은 책임을 가진 계층들에 배속되어 있는 동안, 부지런히 애써서 공부하고 또 비슷한 임무들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라 신뢰와 책임의 자신들의 위치에 분별화되어왔다.

7. 소속없는 사명활동자들. 최극 계층의 배속되지 않은 많은 숫자의 최극 세라핌천사들이 고안건축 구체들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자아-방향결정 하는 봉사자들로 존재한다. 그러한 사명활동자들은 최극 세라핌천사의 업무들을 위한 특수 형태의 요구에 대처한다.

Nebadon for the relationships of the next universe age.

39:1.13 (428.7) 4. *The Teaching Counselors.* These angels are the invaluable assistants of the spiritual teaching corps of the local universe. Teaching counselors are secretaries to all orders of teachers, from the Melchizedek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down to the morontia mortals who are assigned as helpers to those of their kind who are just behind them in the scale of ascendant life. You will first see these associate teaching seraphim on some one of the seven mansion worlds surrounding Jerusalem.

39:1.14 (428.8) These seraphim become associates of the division chiefs of the numerous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y are attached in large numbers to the faculties of the seven training worlds of the local systems and of the seventy educational spher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ministrations extend on down to the individual worlds. Even the true and consecrated teachers of time are assisted, and often attended, by these counselors of the supreme seraphim.

39:1.15 (429.1) The fourth creature bestowal of the Creator Son was in the likeness of a teaching counselor of the supreme seraphim of Nebadon.

39:1.16 (429.2) 5. *Directors of Assignment.* A body of 144 supreme seraphim is elected from time to time by the angels serving on the evolutionary and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of creature habitation. This is the highest angelic council on any sphere, and it co-ordinates the self-directed phases of seraphic service and assignment. These angels preside over all seraphic assemblies pertaining to the line of duty or the call to worship.

39:1.17 (429.3) 6. *The Recorders.* These are the official recorders for the supreme seraphim. Many of these high angels were born with their gifts fully developed; others have qualified for their positions of trust and responsibility by diligent application to study and faithful performance of similar duties while attached to lower or less responsible orders.

39:1.18 (429.4) 7. *Unattached Ministers.* Large numbers of unattached seraphim of the supreme order are self-directed servers on the architectural spheres and on the inhabited planets. Such ministers voluntarily meet the differential of demand for the service of the supreme seraphim, thus constituting the general reserve of this order.

제 2 장. 우수 세라핌천사

상급 세라핌천사들은 자기 이름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어떤 감각적인 질(質)에 있어서 다른 계층의 천사들에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

2. SUPERIOR SERAPHIM

39:2.1 (429.5) Superior seraphim receive their name, not because they are in any sense qualitatively superior to other orders of angels, but because

우주의 보다 높은 활동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첫 두 집단들 중에서 매우 많은 숫자는 달성 세라핌천사들, 모든 훈련 위상에서 봉사하였고 그들이 초기에 활동하였던 구체들에서 그들 부류에 대한 지도자로서 영화롭게 된 임무로 되돌아왔던 천사들이다. 아직 미숙한 우주이기 때문에, 네바돈은 이 계층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상급 세라핌천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일곱으로 나뉜다:

1. 정보 무리단. 이 세라핌천사들은 가브리엘,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적 참모진에 소속된다. 그들은 네바돈의 협의회들에서의 그의 안내를 돕기 위해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역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가브리엘이 주(主) 아들의 대관으로서 통솔하는 막강한 무리들의 정보무리단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체계들 또는 별자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며,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계속적이고 직접적이며 독립적인 순환회로를 따라 구원자별에 직접 전달된다.

다양한 지역우주들의 정보무리단들이 상호 교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직 주어진 한 초우주 안으로 제한된다. 다양한 초(超)정부들의 업무와 활동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의 초우주는 대개 파라다이스 정보 중심의 규정과 설비를 통해서만 다른 초우주와 교통할 수 있다.

2. 자비의 음성. 자비는 세라핌천사 봉사와 천사 사명활동의 기본음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자비를 표현하는 천사 무리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들의 실제적인 자비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의 보다 높은 자극과 보다 거룩한 감정들을 육성하는,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이다. 현재 이 무리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필사자 운명의 졸업 수호자이기도 한, 완성 세라핌천사들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천사 쌍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동물 기원 혼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 안내하였고 그 후에 천사별의 순환계들을 지나갔으며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 소집되었다.

3. 영 조화-협동자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세 번째 집단은 구원자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역 우주 안에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활동한다. 그들의 임무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들의 실제 납득 한계를 벗어나는 반면, 만일 이 천사들이 지역우주 안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변환—가장 높은 모론시아 차원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영 존재들의 지위로—을 위해 구원자별에 있는 상급 체류자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면 너희는 필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의 일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마음 계획자들이 생존되는 창조체들로 하

they are in charge of the higher activities of a local universe. Very many of the first two groups of this seraphic corps are attainment seraphim, angels who have served in all phases of training and have returned to a glorified assignment as directors of their kind in the spheres of their earlier activities. Being a young universe, Nebadon does not have many of this order.

39:2.2 (429.6) The superior seraphim function in the following seven groups:

39:2.3 (429.7) 1. *The Intelligence Corps.* These seraphim belong to the personal staff of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y range the local universe gathering the information of the realms for his guidance in the councils of Nebadon. They are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mighty hosts over which Gabriel presides as vicegerent of the Master Son. These seraphim are not directly affiliated with either the systems or the constellations, and their information pours in direct to Salvington upon a continuous, direct, and independent circuit.

39:2.4 (429.8)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various local universes can and do intercommunicate but only within a given superuniverse. There is a differential of energy which effectively segregates the business and transactions of the various supergovernments. One superuniverse can ordinarily communicate with another superuniverse only through the provisions and facilities of the Paradise clearinghouse.

39:2.5 (430.1) 2. *The Voice of Mercy.* Mercy is the keynote of seraphic service and angelic ministry. It is therefore fitting that there should be a corps of angels who, in a special manner, portray mercy. These seraphim are the real mercy minister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are the inspired leaders who foster the higher impulses and holier emotions of men and angels. The directors of these legions are now always completion seraphim who are also graduate guardians of mortal destiny; that is, each angelic pair has guided at least one soul of animal origin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nd has subsequently traversed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has been mustered into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2.6 (430.2) 3. *Spirit Co-ordinators.* The third group of superior seraphim are based on Salvington but function in the local universe anywhere they can be of fruitful service. While their tasks are essentially spiritual and therefore beyond the real understanding of human minds, you will perhaps grasp something of their ministry to mortals if it is explained that these angels are intrusted with the task of preparing the ascendant sojourners on Salvington for their last transition in the local universe — from the highest morontia level to the status of newborn spirit beings. As the mind planners on the mansion worlds help the surviving

여금 모른시아 마음의 잠재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효력 있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라핌천사들은 구원자별에 있는 모른시아 졸업생들에게 영의 마음의 새롭게 달성된 능력에 관하여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긴다.

4. 보좌관 교사들. 보좌관 교사들은 그들의 동료 세라핌천사들, 교습 조연자들의 조력자이자 연관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지역우주의 광범위한 교육 체제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역체제들의 맨션세계들에 있는 칠중(七重) 훈련자 계획과 관련이 있다. 이 계층의 세라핌천사들의 훌륭한 무리단이 진리와 정의(正義)의 근거를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서 기능한다.

5. 운송자들. 사명활동 영들의 모든 집단들은 자신들의 운송 부대,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저절로 여행할 수 없는 그 개인성들을 운송하는 사명활동에 전념하는 천사 계층들이다. 상급 세라핌천사들 중 다섯 번째 집단은 구원자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우주의 본부들을 향하여 또는 그곳으로부터 움직이는 공간 횡단자들이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일부분은 그렇게 창조된 반면 나머지는 보다 낮거나 혹은 적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집단들로부터 올라왔다.

세라핌천사의 “에너지 범위”는 지역우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우주 필요조건들에도 전적으로 적합하지만, 유버사로부터 하보나에 이르는 것과 같은 오랫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고갈되는 그러한 여행에는 운송 자질을 가진 1차 2품천사의 특별한 힘이 요구된다. 운송자들은 이동하는 동안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여행이 끝났을 때 개인적인 힘을 회복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구원자별에서도 개인적 운송 형태를 소유하지 않는다. 상승자들은 하보나의 내부 순환계에서 마지막 잠이 든 이후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갈 때 세라핌천사 수송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후에는 너희가 우주에서 우주로 갈 때 수송수단을 위해 천사들에게 의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세라핌천사 품속에 들어가는 과정은 변환 수면 과정 속에 자동적인 시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은 또는 잠자는 체험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세라핌천사 품 속에서 쉬는 동안 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다. 그러나 생각 조절자는 전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의식을 가지는데, 사실은, 창조적이고 변환하는 일에 너희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능률적이다.

세라핌천사 품속에 들어갈 때, 너희는 특정한 시간동안 잠을 자게 되며, 정해진 순간에 깨어나

creature to adjust to, and make effective use of, the potentials of morontia mind, so do these seraphim instruct the morontia graduates on Salvington regarding the newly attained capacities of the mind of the spirit. And they serve the ascendant mortals in many other ways.

39:2.7 (430.3) 4. *Assistant Teachers.* The assistant teachers are the helpers and associates of their fellow seraphim, the teaching counselors. They are also individually connected with the extensive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local universe, especially with the sevenfold scheme of training operative on the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A marvelous corps of this order of seraphim functions on Urantia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nd furthering the cause of truth and righteousness.

39:2.8 (430.4) 5. *The Transporters.* All groups of ministering spirits have their transport corps, angelic orders dedicated to the ministry of transporting those personalities who are unable, of themselves, to journey from one sphere to another. The fifth group of the superior seraphim are headquartered on Salvington and serve as space traversers to an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Like other subdivisions of the superior seraphim, some were created as such while others have risen from the lower or less endowed groups.

39:2.9 (430.5) The “energy range” of seraphim is wholly adequate for local universe and even for superuniverse requirements, but they could never withstand the energy demands entailed by such a long journey as that from Uversa to Havona. Such an exhaustive journey requires the special powers of a primary seconaphim of transport endowments. Transporters take on energy for flight while in transit and recuperate personal power at the end of the journey.

39:2.10 (430.6) Even on Salvington ascending mortals do not possess personal transit forms. Ascenders must depend upon seraphic transport in advancing from world to world until after the last rest of sleep on the inner circle of Havona and the eternal awakening on Paradise. Subsequently you will not be dependent on angels for transport from universe to universe.

39:2.11 (430.7) The process of being enseraphimed is not unlike the experience of death or sleep except that there is an automatic time element in the transit slumber. You are consciously unconscious during seraphic rest. But the Thought Adjuster is wholly and fully conscious, in fact, exceptionally efficient since you are unable to oppose, resist, or otherwise hinder creative and transforming work.

39:2.12 (431.1) When enseraphimed, you go to sleep for a specified time, and you will awake at the

게 될 것이다. 전환과정의 잠을 자는 여행의 길이는 비물질적이다. 너희는 지나가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어느 도시에서 운송 매체를 타고 잠을 잔 후에 온 밤을 편안한 잠 속에 쉬고 나서 다른 먼 도시에서 잠을 깬 것과 비슷하다. 너희는 잠을 자면서 여행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세라핌천사 품속에서 공간을 통해 날아가며, 그 동안 너희는 쉬게—잠자게—되는 것이다. 이동하는 동안의 수면은 조절자들과 세라핌천사 운송자들 사이의 연락에 의해 유발된다.

천사들은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타버릴 수 있는 몸체들—살과 피—을 운송할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모론시아 형태로부터 보다 높은 영 형태들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모든 것들을 운반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의 사건 속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상에서의 생애를 완결하였을 때, 너희 육신은 이 행성에 남는다. 너희의 생각 조절자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아가며, 이 천사들은 너희 개인성이 그 후에 맨션세계 정체화구현 위에 다시 조립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너희 몸체는 모론시아 형태를 갖게 되는데, 세라핌천사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너희는 무덤 속에 “필사 육신을 씨뿌리고”; 맨션세계들에서 “모론시아 형태를 거둔다.”

6. 기록자들. 이 개인성들은 구원자별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의 기록들에 대한 접수와 서류정리 그리고 재발송에 특별히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초우주의 거주 집단들 그리고 높은 개인성들을 위한 특별 기록자들로서 그리고 구원자별의 법정들의 직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통치자들의 비서들로서 봉사한다.

방송자들—접수자들 그리고 발송인들—은 세라핌천사 기록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분된 하부 기관인데, 기록을 발송하는 것과 기본적인 정보의 보급에 관여한다. 그들의 업무는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데, 144,000 개의 메시지들이 동일한 에너지 계통들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중(多重) 순환회로로 되어 있다. 그들은 우두머리 세라핌천사 기록자 우두머리들의 비교적 높은 표의 문자(表意文字) 기법을 수용하며 일반적인 이 상징들을 가지고 제3 세라핌천사의 정보조화-협동자들 그리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영화롭게 된 정보조화-협동자들, 둘 모두와 상호보답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상급 계층의 세라핌천사 기록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 자체 계층의 정보무리단 그리고 모든 하위 기록자들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이루게 하는 반면, 방송체제는 그들로 하여금 초우주의 보다 높은 기록자들과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 하보나의 기록자들과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지식 보호관리자들과 계속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자들의 상급 계층 중에서 많은 숫자는 우주의 하급 구역에서 비슷한 지위들로부터 상승된 세라핌천사들이다.

designated moment. The length of a journey when in transit sleep is immaterial. You are not directly aware of the passing of time. It is as if you went to sleep on a transport vehicle in one city and, after resting in peaceful slumber all night, awakened in another and distant metropolis. You journeyed while you slumbered. And so you take flight through space, enseraphimed, while you rest — sleep. The transit sleep is induced by the liaison between the Adjusters and the seraphic transporters.

39:2.13 (431.2) The angels cannot transport combustion bodies — flesh and blood — such as you now have, but they can transport all others, from the lowest morontia to the higher spirit forms. They do not function in the event of natural death. When you finish your earthly career, your body remains on this planet. Your Thought Adjuster proceeds to the bosom of the Father, and these angels are not directly concerned in your subsequent personality reassembly on the identification mansion world. There your new body is a morontia form, one that can enseraphim. You “sow a mortal body” in the grave; you “reap a morontia form” on the mansion worlds.

39:2.14 (431.3) 6. *The Recorders.* These personalities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reception, filing, and redispach of the records of Salvington and its associated worlds. They also serve as special recorders for resident groups of superuniverse and higher personalities and as clerks of the courts of Salvington and secretaries to the rulers thereof.

39:2.15 (431.4) *Broadcasters* — receivers and dispatchers — are a specialized subdivision of the seraphic recorders, being concerned with the dispatch of records and with the dissemination of essential information. Their work is of a high order, being so multicircuited that 144,000 messages can simultaneously traverse the same lines of energy. They adapt the higher ideographic techniques of the superaphic chief recorders and with these common symbols maintain reciprocal contact with both the intelligence co-ordinato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and the glorified intelligence co-ordinator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39:2.16 (431.5) Seraphic recorders of the superior order thus effect a close liaison with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ir own order and with all subordinate recorders, while the broadcasts enable them to mainta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higher recorders of the superuniverse and, through this channel, with the recorders of Havona and the custodians of knowledge on Paradise. Many of the superior order of recorders are seraphim ascended from similar duties in lower sections of the universe.

7. 예비자들. 모든 유형의 상급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많은 숫자의 예비자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정 감독자들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 또는 우주 행정-관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네바돈의 가장 먼 세계들로 즉시 보내질 수 있다. 상급 세라핌천사들의 예비자들은 찬란한 저녁별의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 메신저 도움자로 협조하기도 하는데, 그는 모든 개인적 통신을 보호하고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역우주는 상호통신에 적당한 수단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개인적인 메신저에 의한 파송을 요구하는 잔여 메시지들이 항상 있다.

전체 지역우주의 기본적인 예비자들은 구원자별의 세라핌천사 세계들에 주둔한다. 이 무리단은 모든 집단 유형의 천사들을 포함한다.

제 3 장. 감독자 세라핌천사

이 다재다능한 계층의 우주 천사들은 별자리들에 대한 배타적인 봉사에 배정되어 있다. 유능한 이들 사명활동자들은 자신들의 본부를 별자리 수도에 설치하지만 자신들이 배정된 영역을 위하여 네바돈 전체 구석구석에서 기능한다.

1. 감독하는 보좌관들. 감독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계층은 별자리 아버지들의 공동 작업에 배정되며, 지고자들의 항상-효과적인 조력자들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하나의 전체 별자리의 통일과 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2. 법 예측자들. 공의(公義)에 대한 지적 기초는 법이며, 지역우주 안에서 법은 별자리들의 입법회의들 안에서 생겨난다. 심사숙고하는 이 기관들은 네바돈의 기본법을 성문화하고 공식적으로 공표하는데, 법은 개인적 창조체들의 도덕적 자유의지의 침해되지 않는 고정 방침으로 일관된 전체 별자리의 최고로 가능한 조화-협동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제시된 모든 법규들이 자유의지 창조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예측을 별자리 법 제정자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중 제2 계층의 임무이다. 그들은 지역체계들 안에서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체휼을 가진 덕분에 이 봉사를 수행하도록 잘 분별화된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한 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위해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대변하고자 천상의 입법자들 앞에 출두한다. 심지어 필사자 사람도 우주 법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세라핌천사들이, 반드시 사람의 과도기적이고 의식적인 요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사람, 공간 세계들에 있는 물질적 필사자의 진화하는 모른시아 혼의 참된 열망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39:2.17 (431.6) 7. *The Reserves.* Large reserves of all types of the superior seraphim are held on Salvington, instantly available for dispatch to the farthestmost worlds of Nebadon as they are requisitioned by the directors of assignment or upon the request of the universe administrators. The reserves of superior seraphim also furnish messenger aids upon requisition by the chief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ho is intrusted with the custody and dispatch of all personal communications. A local universe is fully provided with adequate means of intercommunication, but there is always a residue of messages which requires dispatch by personal messengers.

39:2.18 (432.1) The basic reserves for the entire local universe are held on the seraphic worlds of Salvington. This corps includes all types of all groups of angels.

3. SUPERVISOR SERAPHIM

39:3.1 (432.2) This versatile order of universe angels is assigned to the exclusive service of the constellations. These able ministers make their headquarter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but function throughout all Nebadon in the interests of their assigned realms.

39:3.2 (432.3) 1. *Supervising Assistants.* The first order of the supervising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collective work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they are the ever-efficient helpers of the Most Highs. These seraphim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un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39:3.3 (432.4) 2. *Law Forecasters.*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justice is law, and in a local universe law originates in the legislative assemblies of the constellations. These deliberative bodies codify and formally promulgate the basic laws of Nebadon, laws designed to afford the greatest possible co-ordin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consistent with the fixed policy of noninfringement of the moral free will of personal creatures. It is the duty of the second order of supervisor seraphim to place before the constellation lawmakers a forecast of how any proposed enactment would affect the lives of freewill creatures. This service they are well qualified to perform by virtue of long experience in the local systems and on the inhabited worlds. These seraphim seek no special favors for one group or another, but they do appear before the celestial lawmakers to speak for those who cannot be present to speak for themselves. Even mortal man may contribute to the evolution of universe law, for these very seraphim do faithfully and fully portray, not necessarily man's transient and conscious desires, but rather the true longings of the inner man, the evolving

3. 사회 고안건축가들. 개개의 행성들로부터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 세라핌천사들은 우주 창조체들의 사회적 진화를 증진시키고 진실한 모든 사회적 교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한다. 이들은 실제적 자아-납득과 진정한 상호 존중의 기본 위에서 의지적 창조체들의 상호 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모든 인공성의 지능 존재들에서의 관계적-연합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천사들이다.

사회 고안건축가들은 자기 분야와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개별존재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유능하고 잘 어울리는 작업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한다; 때로는 그러한 집단들이 계속되는 풍성한 봉사를 위해 맨션세계에서 자신들을 다시-연관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세라핌천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그들은 최고의 물질적 가능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천사들은 맨션세계들과 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자신의 사명활동을 계속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셋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한다. 짝을 짓는, 보완적인, 또는 동업하는 원칙에 위에서 두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이 봉사를 위해 집단을 형성할 때 그들은 사회적 문제를 구성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고안건축가들의 사법권 속에 들어간다. 효율적인 이 세라핌천사들은 에덴시아에서 70개 부서들로 조직되며, 이 부서들은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0개 모론시아 진보 세계들에서 사명활동 한다.

4. 윤리 민감성 제고자(提高者)들. 개인상호관계의 도덕에 대한 창조체 인식의 성장을 육성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이 세라핌천사들의 임무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인간적 또는 초인간적 사회와 정부의 계속적이고도 의도적인 성장에 대한 근원인 동시에 비결이기 때문이다. 이들 윤리 인식 제고자들은 행성 통치자들에 대한 자원하는 조언자들로서 그리고 체계 훈련 세계들에서 교훈교수들로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기능한다. 아무튼 너희는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형제신문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벽한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시아텍 수도의 70개 위성들인 에덴시아의 사회적 실험실들 안에서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거하는 그때에서야 실제적 체험에 의해 너희가 진정으로 탐구하게 될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바로 그 진리들을 너희가 빨리 인식하도록 그들이 촉진시킬 것이다.

5. 운송자들.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다섯 번째 집단은 개인성 운송자들, 별자리들의 본부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운송하는 존재들로서 활

morontia soul of the material mortal on the worlds of space.

39:3.4 (432.5)

3. *Social Architects.* From the individual planets up through the morontia training worlds, these seraphim labor to enhance all sincere social contacts and to further the social evolution of universe creatures. These are the angels who seek to divest the associations of intelligent beings of all artificiality while endeavoring to facilitate the interassociation of will creatures on a basis of real self-understanding and genuine mutual appreciation.

39:3.5 (432.6)

Social architects do everything within their province and power to bring together suitable individuals that they may constitute efficient and agreeable working groups on earth; and sometimes such groups have found themselves reassociated on the mansion worlds for continued fruitful service. But not always do these seraphim attain their ends; not always are they able to bring together those who would form the most ideal group to achieve a given purpose or to accomplish a certain task; under these conditions they must utilize the best of the material available.

39:3.6 (432.7)

These angels continue their ministry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They are concerned with any undertaking having to do with progress on the morontia worlds and which concerns three or more persons. Two beings are regarded as operating on the mating, complemental, or partnership basis, but when three or more are grouped for service, they constitute a social problem and therefore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ocial architects. These efficient seraphim are organized in seventy divisions on Edentia, and these divisions minister on the seventy morontia progress worlds encircling the headquarters sphere.

39:3.7 (433.1)

4. *Ethical Sensitizers.* It is the mission of these seraphim to foster and to promote the growth of creature appreciation of the mor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such is the seed and secret of the continued and purposeful growth of society and government, human or superhuman. These enhancers of ethical appreciation function anywhere and everywhere they may be of service, as volunteer counselors to the planetary rulers and as exchange teachers on the system training worlds. You will not, however, come under their full guidance until you reach the brotherhood schools on Edentia, where they will quicken your appreciation of those very truths of fraternity which you will even then be so earnestly exploring by the actual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univitatia in the social laboratories of Edentia, the seventy satellites of the Norlatiadek capital.

39:3.8 (433.2)

5. *The Transporters.* The fifth group of supervisor seraphim operate as personality transporters, carrying beings to and from the

동한다. 그러한 운송 세라핌천사들은, 한 구체로부터 다른 구체로 날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천문학적 위치를 충만하게 의식한다. 그들은 마치 무생물 발사체처럼 우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간을 날아가는 동안 조금도 충돌할 위험이 없이 서로 근접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들은 전진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주 지능 순환회로들의 어떤 공간 교차로에서 그들에게 지도를 내리게 되면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다.

이 운송 개인성들은 우주적으로 분포된 세 개의 에너지 계통들 모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은 초당 186,280마일의 정확한 공간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운송자들은 너희 시간의 기준으로 초당 555,000마일에서 거의 559,000마일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그들의 긴 여행에서 그들이 평균 속도에 이르기까지 힘의 속도에 따라 에너지의 속도를 이중적으로 첨가시킬 수 있다. 그 속도는 근처에 있는 물질의 질량과 근접성에 의해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주 힘의 주요 순환회로들의 힘과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하게 준비된 다른 존재들을 옮길 수도 있는, 세라핌천사들과 비슷한 수많은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6. 기록자들. 감독하는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여섯 번째 계층은 별자리 관련사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자들로서 활동한다.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무리단이 놀라시아텍 별자리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기능하는데, 너희 체계와 행성은 거기에 속해 있다.

7. 예비자들. 감독자 세라핌천사들의 일반 예비자들은 별자리들의 본부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한 천사 예비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비활동적인 상태가 아니며; 많은 숫자는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대한 메신저 도움자로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배정되지 않는 보론다텍들의 구원자별 예비자들에게 배속되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란시아의 보론다텍 관찰자, 그리고 때로는 유란시아의 지고자 대리통치자와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론다텍 아들들에게 배속될 수 있다.

제 4 장.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

세라핌천사의 네 번째 계층은 지역체계들의 행정-관리적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체계 수도에 토착적 이지만, 많은 숫자는 맨션 구체와 모론시아 구체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주둔하고 있다. 네 번째 계층의 세라핌천사들은 본성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은 유별난 행정-관리적 능력을 타고났다. 그들은 한 창조자 아들의 우주 정부에 있는 비교적 낮은 부서들의 지도자들의 유능한 보좌관들이며 지역체계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Such transport seraphim, while in flight from one sphere to another, are fully conscious of their velocity, direction, and astronomic whereabouts. They are not traversing space as would an inanimate projectile. They may pass near one another during space flight without the least danger of collision. They are fully able to vary speed of progression and to alter direction of flight, even to change destinations if their directors should so instruct them at any space junction of the universe intelligence circuits.

39:3.9 (433.3) These transit personalities are so organized that they can simultaneously utilize all three of the universally distributed lines of energy, each having a clear space velocity of 186,280 miles per second. These transporters are thus able to superimpose velocity of energy upon velocity of power until they attain an average speed on their long journeys varying anywhere from 555,000 to almost 559,000 of your miles per second of your time. The velocity is affected by the mass and proximity of neighboring matter and by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 near-by main circuits of universe power. There are numerous types of beings, similar to the seraphim, who are able to traverse space, and who also are able to transport other beings who have been properly prepared.

39:3.10 (433.4) 6. *The Recorders.* The sixth order of supervising seraphim act as the special recorders of constellation affairs. A large and efficient corps functions on Edentia,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to which your system and planet belong.

39:3.11 (433.5) 7. *The Reserves.* General reserves of the supervisor seraphim are held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s. Such angelic reservists are in no sense inactive; many serve as messenger aids to the constellation rulers; others are attached to the Salvington reserves of unassigned Vorondadeks; still others may be attached to Vorondadek Sons on special assignment, such as the Vorondadek observer, and sometimes Most High regent, of Urantia.

4. ADMINISTRATOR SERAPHIM

39:4.1 (434.1) The fourth order of seraphim are assigned to the administrative duties of the local systems. They are indigenous to the system capitals but are stationed in large numbers on the mansion and morontia spheres and on the inhabited worlds. Fourth-order seraphim are by nature endowed with unusual administrative ability. They are the able assistants of the directors of the lower divisions of the universe government of a Creator Son and are mainly occupied with the

그들은 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1. 행정 보좌관들. 유능한 이 세라핌천사들은 1차 라노난텍 아들인 체계 주권자의 측근 보좌관들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의 복잡하게 얽힌 집행적 업무 내용들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움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변형 세계들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을 많은 숫자로 오가며 여행하는, 체계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유익을 위해 많은 임무들을 수행하는, 체계 통치자들의 개인적 관리인으로 봉사한다.

바로 이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는 또한 행성 영주들인 세계 통치자들의 정부에 배속되어 있기도 하다. 주어진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 대부분은 2차 라노난텍 아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유란시아와 같은 특정한 세계들에서는 신성한 계획의 실패가 존재해 왔다. 행성영주가 변절한 사건 안에서, 이 세라핌천사들은 멜기세덱 접수자들과 행정권한에 있어서의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배속되게 된다. 유란시아의 현재 활동하는 통치자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세라핌천사 1,000명의 무리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2. 공의(公義) 안내자들. 체계 또는 행성의 법정에서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판결을 받으러 나아올 때 그것들에 관한 요약된 증거를 제시하는 천사들이다. 그들은 필사자 생존에 관계되는 모든 예비 청문회들을 위한 진술서들, 우주와 초우주의 보다 높은 법정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을 그 후에 제시할 진술서들을 준비한다. 의심스러운 생존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변호는 이 세라핌천사들에 의해 준비되는데, 그들은 우주 공의(公義)를 다루는 행정-관리자들에 의해 도출된 고소장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의 각 사항들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완전하게 납득하고 있다.

공의(公義)를 무효화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의 임무가 아니며, 오히려 정확한 공의(公義)가 공정함 속에서 관대한 자비를 모든 창조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종종 지역 세계들에서 기능하는데, 회유하는 위원회들—중요하지 않은 오해를 위한 법정들—의 3인조 심판관들 앞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낮은 영역들에서 한때 공의(公義) 안내자들로 수고하였던 많은 존재들이 나중에 보다 높은 구체들 그리고 구원자별에서 자비의 음성들로 나타난다.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 반란 시에 매우 적은 숫자의 공의(公義) 안내자들만을 잃었지만, 다른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들과 보다 낮은 계층의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 중 4분의 1이 방자한 개인적 해방의 꾀변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현혹되었다.

affairs of the local systems and their component worlds. They are organized for service as follows:

39:4.2 (434.2) 1. *Administrative Assistants*. These able seraphim are the immediate assistants of a System Sovereign, a primary Lanonandek Son. They are invaluable aids in the execution of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executive work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ey also serve as the personal agents of the system rulers, journeying back and forth in large numbers to the various transition worlds and to the inhabited planets, executing many commissions for the welfare of the system and in the physical and biologic interests of its inhabited worlds.

39:4.3 (434.3) These same seraphic administrators are also attached to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rulers, the Planetary Princes. The majority of planets in a given universe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econdary Lanonandek Son, but on certain worlds, such as Urantia,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In the event of the defection of a Planetary Prince, these seraphim become attached to the Melchizedek receivers and their successors in planetary authority. The present acting ruler of Urantia is assisted by a corps of one thousand of this versatile order of seraphim.

39:4.4 (434.4) 2. *Justice Guides*. These are the angels who present the summary of evidence concerning the eternal welfare of men and angels when such matters come up for adjudication in the tribunals of a system or a planet. They prepare the statements for all preliminary hearings involving mortal survival, statements which are subsequently carried with the records of such cases to the higher tribunals of the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The defense of all cases of doubtful survival is prepared by these seraphim, who have a perfect understanding of all the details of every feature of every count in the indictments drawn by the administrators of universe justice.

39:4.5 (434.5) It is not the mission of these angels to defeat or to delay justice but rather to insure that unerring justice is dealt out with generous mercy in fairness to all creatures. These seraphim often function on the local worlds, commonly appearing before the referee trios of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 the courts for minor misunderstandings. Many who at one time served as justice guides in the lower realms later appear as Voices of Mercy in the higher spheres and on Salvington.

39:4.6 (434.6) In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very few of the justice guides were lost, but more than one quarter of the other administrator seraphim and of the lower orders of seraphic ministers were misled and deluded by the sophistries of unbridled personal liberty.

3. 우주 시민권 통역자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자신들의 우주 생애에서의 첫 번째 학생 도제(徒弟) 신분인 맨션세계 훈련을 마쳤을 때, 그들은 상대적인 성숙—체계 수도에서의 시민권—의 과도기 만족감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는다. 각각의 상승 목표 달성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반면, 보다 높은 의미에서 그러한 목표들은 단순히 파라다이스로 향하는 긴 상승 경로 위에 있는 이정표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들이 얼마나 상대적이든지 간에, 어떤 진화적 창조체도 목표 달성의 과도기 만족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이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상승에 있어서 일시적인 중단, 짧게 숨을 돌이키는 기간이 때때로 존재하는데, 그 동안에 우주 한계가 멈추고, 창조체 지위가 고정되며, 개인성은 목적 성취의 달콤함을 맛본다.

필사자 상승자의 생애에 있어서 그러한 기간들 중 첫 번째는 지역체계의 수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정지 기간 동안 예루셈의 시민으로서의 너희는 여덟 번의 이전(以前) 삶 체험들—유란시아와 일곱 맨션세계들을 포함하는—의 기간 동안 너희가 획득한 그것들을 창조체 삶 속에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우주 시민 신분의 세라핌천사 통역자들이 체계 수도들의 새로운 시민들을 안내하고 우주 정부의 의무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자극한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또한 체계 관리-행정 안에 있는 물질아들과 가깝게 연관하며, 반면에 그들은 조화우주 시민권의 의무와 도덕성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물질적 필사자들에게 묘사한다.

4. 도덕성 촉진자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관련된 모든 유익을 위하여 자아-관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너희 마음은 협동을 배우는데, 다른 존재들 그리고 더 현명한 존재들과 어떻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가를 배운다. 체계 본부에서 세라핌천사 선생들은 우주 도덕성—해방과 충성심의 상호 작용에 해당하는—에 대한 너희의 인식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충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주 형제신분에 대한 지능적인 깊은 인식의 열매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이 취하고서 아무 것도 내어주지 않는 자는 없다. 너희가 개인성 눈금을 올라감에 따라, 처음에 너희는 충성스럽게 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자녀다워지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최종자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충성의 완전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해방의 최종을 자아-실현할 수 없다.

이들 세라핌천사는 다음과 같은 인내의 열매 풍성함을 가르친다: 침체는 확실한 죽음이지만, 과도하게 빠른 성장 역시 똑같이 자멸이라는 것; 높은 곳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그리고 앞으로 흘러나가고, 그리고 뒤이어지는 작은 폭포들을 지나 언제까지나 내려가며 흐르듯이,—그렇게 천천히 또한 그렇게 점진적인 단계

39:4.7 (434.7) 3. *Interpreters of Cosmic Citizenship.*

When ascending mortals have completed the mansion world training, the first student apprenticeship in the universe career, they are permitted to enjoy the transient satisfactions of relative maturity — citizenship on the system capital. While the attainment of each ascendant goal is a factual achievement, in the larger sense such goals are simply milestones on the long ascending path to Paradise. But however relative such successes may be, no evolutionary creature is ever denied the full though transient satisfaction of goal attainment. Ever and anon there is a pause in the Paradise ascent, a short breathing spell, during which universe horizons stand still, creature status is stationary, and the personality tastes the sweetness of goal fulfillment.

39:4.8 (435.1) The first of such periods in the career of a mortal ascender occurs on the capital of a local system. During this pause you will, as a citizen of Jerusem, attempt to express in creature life those things which you have acquired during the eight preceding life experiences — embracing Urantia and the seven mansion worlds.

39:4.9 (435.2) The seraphic interpreters of cosmic citizenship guide the new citizens of the system capitals and quicken their appreci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universe government. These seraphim are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Sons in the system administration, while they portray the responsibility and morality of cosmic citizenship to the material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39:4.10 (435.3) 4. *Quickeners of Morality.* On the mansion worlds you begin to learn self-government for the benefit of all concerned. Your mind learns co-operation, learns how to plan with other and wiser beings. On the system headquarters the seraphic teachers will further quicken your appreciation of cosmic morality — of the interactions of liberty and loyalty.

39:4.11 (435.4) What is loyalty? It is the fruit of an intelligent appreciation of universe brotherhood; one could not take so much and give nothing. As you ascend the personality scale, first you learn to be loyal, then to love, then to be filial, and then may you be free; but not until you are a finaliter, not until you have attained perfection of loyalty, can you self-realize finality of liberty.

39:4.12 (435.5) These seraphim teach the fruitfulness of patience: That stagnation is certain death, but that overrapid growth is equally suicidal; that as a drop of water from a higher level falls to a lower and, flowing onward, passes ever downward through a succession of short falls, so ever upward is progress in the morontia and spirit

에 따라—모론시아와 영 세계들안에서도 그렇게 언제까지나 위쪽으로 진보된다.

도덕성 촉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필사자 삶을 많은 연결고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묘사한다. 필사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이 구체인,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짧은 머무름은 오직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우주들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긴 사슬에서의 바로 그 맨 첫 번째 고리이다. 이 첫 번째 일생에서 너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생을 사는 삶의 체험이다. 이 세계의 일도 역시, 그것이 비록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긴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의로운 삶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없지만, 심오한 만족감—성취에서의 의식—이 있고 이것은 상상 가능한 그 어떤 물질적 보상도 초월한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은 성실함, 더욱 성실함 그리고 더욱 더 성실함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열쇠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결심하고, 더욱 결심하고, 그리고 더욱 더 결심함으로써—영 지위에서의 향상에—이 열쇠를 사용한다. 가장 높은 도덕적 선택은 가장 높은 가능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항상—그 어떤 모든 구체 안에서, 그들 모두 안에서—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가 예루셈의 가장 낮은 시민일지라도, 아니 비록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자들의 가장 보잘 것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는 위대하다.

5. 운송자들. 이들은 지역체계들 안에서 기능하는 운송 세라핌천사들이다. 너희의 체계인 사타니아에서, 그들은 예루셈 쪽으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승객들을 실어 나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성들 사이의 운송자로서 봉사한다. 사타니아의 한 운송 세라핌천사가 어느 학생 방문자 또는 다른 영 여행자 혹은 반(半)영적 본성의 여행자를 유란시아의 경계선에 두는 데에 하루가 지나는 경우가 드물다. 바로 이 우주 통과자들은 언젠가 너희를 체계 본부 집단의 다양한 세계들에게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운송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예루셈 임무를 완결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에덴시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인간이 기원된 세계를 향하여 뒤쪽으로 너희를 운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사자는 자신의 일시적 실존의 섭리시대 동안에는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만일 그가 그 다음 세대 동안 되돌아가야만 한다면, 그는 우주 본부 집단의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 호위를 받을 것이다.

6. 기록자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체계들의 삼중적 기록의 보관자들이다. 체계 수도에 있는 기록 신전(神殿)은, 3분의 1은 물질적인데, 빛나는 금속들과 수정체들로 지어졌다; 3분의 1은 모론시아적인데, 영적이고 물질적인 에너지의 연락으로 꾸며져 있지만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3분의 1은 영적이다. 이들 계층의 기록자는 이러한 삼중적 기록체계를 통솔하고 유지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맨 처음에 있는 물질적 보관소들을 참조할 것이고, 물질아들들과 보다 높은 변

worlds — and just as slowly and by just such gradual stages.

39:4.13 (435.6) To the inhabited worlds the quickeners of morality portray mortal life as an unbroken chain of many links. Your short sojourn on Urantia, on this sphere of mortal infancy, is only a single link, the very first in the long chain that is to stretch across universes and through the eternal ages. It is not so much what you learn in this first life; it is the experience of living this life that is important. Even the *work* of this world, paramount though it is, is not nearly so important as the *way* in which you do this work. There is no material reward for righteous living, but there is profound satisfaction — consciousness of achievement — and this transcends any conceivable material reward.

39:4.14 (435.7)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sincerity, more sincerity, and more sincerity. All men have these keys. Men use them — advance in spirit status — by decisions, by more decisions, and by more decisions. The highest moral choice is the choice of the highest possible value, and always — in any sphere, in all of them — this is to choose to do the will of God. If man thus chooses, he *is* great, though he be the humblest citizen of Jerusem or even the least of mortals on Urantia.

39:4.15 (436.1) 5. *The Transporters*. These are the transport seraphim who function in the local systems. In Satania, your system, they carry passengers back and forth from Jerusem and otherwise serve as interplanetary transporters. Seldom does a day pass in which a transport seraphim of Satania does not deposit some student visitor or some other traveler of spirit or semispirit nature on the shores of Urantia. These very space traversers will sometime carry you to and from the various worlds of the system headquarters group, and when you have finished the Jerusem assignment, they will carry you forward to Edentia. Bu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they carry you backward to the world of human origin. A mortal never returns to his native planet during the dispensation of his temporal existence, and if he should return during a subsequent dispensation, he would be escorted by a transport seraphim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group.

39:4.16 (436.2) 6. *The Recorders*. These seraphim are the keepers of the threefold records of the local systems. The temple of records on a system capital is a unique structure, one third material, constructed of luminous metals and crystals; one third morontial, fabricated of the liaison of spiritual and material energy but beyond the range of mortal vision; and one third spiritual. The recorders of this order preside over and maintain this threefold system of records. Ascending

형 존재들은 모른시아 회관들의 그러한 것들을 참조하며, 한편 영역의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보다 높은 영 개인성들은 영 구역의 기록들을 정독한다.

7. 예비무리단들. 예루셈에 있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의 예비무리단은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을 체계의 다양한 세계들로부터 새로 도착한 상승하는 필사자들-맨션세계들의 공인된 졸업생들-과 영 동행자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보낸다. 너희가 예루셈에 머무는 동안 누리는 기쁨들 중 하나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체험을 가진 기다리는 예비무리단인 이 세라핌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하는 일일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체계 수도를 그토록 사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다운 관계들이다. 너희는 물질아들들과 천사들 그리고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뒤섞이는 것을 예루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온통 영적인 존재들과 반(半)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방금 창발하는 개별존재들이 여기에서 형제우애를 가진다. 필사자 형제들이 그곳에서 그토록 변형되고 그리고 인간의 빛 반응에서의 범위가 그토록 확장되기 때문에, 모두가 상호간의 인지와 그리고 동정하는 개인성 납득을 즐길 수 있다.

제 5 장. 행성 조력자

이 세라핌천사들은 체계 수도들에 있는 본부를 유지하며, 거주하는 아담의-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아담들의 봉사, 진화적인 세계들에 있는 물질적 종족들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향상시키는 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천사들의 보살피는 일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그것이 근접할 때, 영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시간의 남자와 여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그것이 접근해 갈 때 점점 더 흥미를 갖는다.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조력자들 대부분은 아담의-통치체제의 붕괴에 따라 제거되었으며, 너희의 세계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감독권은 관리행정자들과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그리고 운명의 수호자들에게 더욱 많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불이행한 물질아들들의 이 세라핌천사 도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들로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1. 동산의 음성들. 인간 진화의 행성 과정이 최고도의 생물학적 차원을 달성하였을 때, 그곳에는 항상 물질아들들과 딸들, 아담들과 이브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생명 원형질을 실제적으로 수여함으로써 종족들의 더욱 증진된 진화를 증강시키기 위해 출현한다. 그러한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본부는 대개 에덴동산이라고 일컬어지며, 그들의 개인적인 세라핌천사들은 종종 “동산의 음성들”이라고 알려진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진화적인 종족들의 육체적 그리고 지적 증진을 위한 그들의 모든

mortals will at first consult the material archives, Material Sons and the higher transition beings consult those of the morontia halls, while seraphim and the higher spirit personalities of the realm peruse the records of the spirit section.

39:4.17 (436.3) 7. *The Reserves.* The reserve corps of administrator seraphim on Jerusalem spend much of their waiting time in visiting, as spirit companions, with the newly arrived ascending mortals from the various worlds of the system — the accredited graduates of the mansion worlds. One of the delights of your sojourn on Jerusalem will be to talk and visit, during recess periods, with these much-traveled and many-experienced seraphim of the waiting reserve corps.

39:4.18 (436.4) It is just such friendly relationships as these that so endear a system capital to the ascending mortals. On Jerusalem you will find the first intermingling of Material Sons, angels, and ascending pilgrims. Here fraternize beings who are wholly spiritual and semispiritual and individuals just emerging from material existence. Mortal forms are there so modified and human ranges of light reaction so extended that all are able to enjoy mutual recognition and sympathetic personality understanding.

5. PLANETARY HELPERS

39:5.1 (436.5) These seraphim maintain headquarters on the system capitals and, though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esident Adamic citizens, are primarily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Planetary Adams, the biologic or physical uplifters of the material rac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The ministering work of angels becomes of increasing interest as it nears the inhabited worlds, as it nears the actual problems faced by the men and women of time who are preparing themselves for the attempt to attain the goal of eternity.

39:5.2 (437.1) On Urantia the majority of the planetary helpers were removed upon the collapse of the Adamic regime, and the seraphic supervision of your world devolved to a greater extent upon the administrators, the transition ministers, and the guardians of destiny. But these seraphic aids of your defaulting Material Sons still serve Urantia in the following groups:

39:5.3 (437.2) 1. *The Voices of the Garden.* When the planetary course of human evolution is attaining its highest biologic level, there always appear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he Adams and Eves, to augment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races by an actual contribution of their superior life plasm. The planetary headquarters of such an Adam and Eve is usually denominated the Garden of Eden, and their personal seraphim are often known as the “voices of the Garden.” These

구체적인 투사들 속에서 행성의 아담들에게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한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불이행이 있는 후에, 이 세라핌천사들 중 일부는 행성에 남아 있었으며 아담의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되었다.

2. 형제신분의 영들. 아담과 이브가 진화 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의 다양한 종족들 사이에서 종족적인 화합과 사회적 협동을 이룩하는 임무가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색깔이 다르고 본성이 다양한 이 종족들이 인간 형제신분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 원시인들은 평화로운 상호-연관의 지혜를, 성숙된 인간 체험의 결과로서 그리고 형제신분의 세라핌천사 영들의 신실한 사명활동을 통해서만, 오직 실현하도록 나온다. 이들 세라핌천사의 수고가 없다면, 진화하는 세계의 종족들을 조화시키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물질아들들의 노력이 크게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의 아담이 유란시아의 진보를 위한 기원적 계획에 충실하였다면, 이 형제신분의 영들이 지금까지 인간 종족 속에서 놀랄만한 변환을 일으켰을 것이다. 아담의-불이행을 고려할 때, 너희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의 형제신분을 이 세라핌천사 계층들이 육성시키고 실현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다.

3. 평화의 혼들. 진화적 사람들이 향상되고자 분투해온 초기 수천 년 기간들은 많은 투쟁들로 특징 지워진다. 평화는 물질적 영역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세계들은 평화의 세라핌천사 혼들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땅에서의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처음으로 실현한다. 비록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에서 초기에 수고할 때 크게 방해를 받았지만, 아담의 시대에 평화의 혼들의 우두머리이었던 베보나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으며 현재는 거주총독의 참모진에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미가엘이 태어났을 때 천사 무리의 영도자로서 “하보나에서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선한 뜻”을 온 세계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이 베보나였다.

행성 진화가 더욱 증진되는 신(新)시대가 되면 이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생존에 대한 철학으로서 신성한 조율의 개념으로 속죄 관념을 대체하는 데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4. 신뢰의 영들. 의심은 원시인들의 선천적인 반응이다; 초기 시대들의 생존 투쟁들은 자연적으로 신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신뢰는 아담의-통치체제의 이들 행성 세라핌천사들의 사명활동에 의해 생겨나게 된 새로운 인간 습득물이다. 진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신뢰를 주입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하느님들은 매우 신뢰가 넘친다; 우주 아버지는 기꺼이 아낌없이 자신—조절자—을 사람의 관계적-연합에 대하여 신뢰한다.

세라핌천사의 이 전체 집단은 아담의-실패 이

seraphim are of invaluable service to the Planetary Adams in all their projects for the physical and intellectual upstepping of the evolutionary races. After the Adamic default on Urantia, some of these seraphim were left on the planet and were assigned to Adam's successors in authority.

39:5.4 (437.3) 2. *The Spirits of Brotherhood.* It should be apparent that, when an Adam and Eve arrive on an evolutionary world, the task of achieving racial harmony and social co-operation among its diverse races is one of considerable proportions. Seldom do these races of different colors and varied natures take kindly to the plan of human brotherhood. These primitive men only come to realize the wisdom of peaceful interassociation as a result of ripened human experience and through the faithful ministry of the seraphic spirits of brotherhood. Without the work of these seraphim the efforts of the Material Sons to harmonize and advance the races of an evolving world would be greatly delayed. And had your Adam adhered to the original plan for the advancement of Urantia, by this time these spirits of brotherhood would have worked unbelievable transformations in the human race. In view of the Adamic default, it is indeed remarkable that these seraphic orders have been able to foster and bring to realization even as much of brotherhood as you now have on Urantia.

39:5.5 (437.4) 3. *The Souls of Peace.* The early millenniums of the upward strivings of evolutionary men are marked by many a struggle. Peace is not the natural state of the material realms. The worlds first realiz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eraphic souls of peace. Although these angels were largely thwarted in their early efforts on Urantia, Vevona, chief of the souls of peace in Adam's day, was left on Urantia and is now attached to the staff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nd it was this same Vevona who, when Michael was born, heralded to the worlds, as the leader of the angelic host, “Glory to God in Havona and on earth peace and good will among men.”

39:5.6 (437.5) In the more advanced epochs of planetary evolution these seraphim are instrumental in supplanting the atonement idea by the concept of divine attunement as a philosophy of mortal survival.

39:5.7 (437.6) 4. *The Spirits of Trust.* Suspicion is the inherent reaction of primitive men; the survival struggles of the early ages do not naturally breed trust. Trust is a new human acquisition brought about by the ministry of these planetary seraphim of the Adamic regime. It is their mission to inculcate trust into the minds of evolving men. The Gods are very trustful; the Universal Father is willing freely to trust himself — the Adjuster — to man's association.

39:5.8 (438.1) This entire group of seraphim was

후에 새로운 체제로 이전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유란시아에서의 수고를 이어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감과 신뢰에 대한 그들의 이상들 중 많은 부분이 체현된 문명이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진보된 행성 시대들이 되면 이 세라핌천사들은 불확실성이, 만족되어지는 연속성의 비밀이라는 진리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성공을 위해 무지가 필수적일 때 창조체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것이 엄청나게 큰 실책이 될 수 있음을 필사 철학자들이 실현하도록 그들이 돕는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감미로움, 명확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달콤한 분위기와 매력을 사람이 더욱 맛볼 수 있게 한다.

5. 운송자들. 행성 운송자들은 개별 세계에서 봉사한다. 이곳 행성으로 옮겨진, 세라핌천사에 둘러싸인 존재들 대부분은 통과 도중이다; 그들은 단지 잠시 멈추어서 머무르는 것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특별한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의 보호관리에 있다; 한편 유란시아에 주둔하는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의 숫자는 매우 많다. 이들은 유란시아로부터 예루셈으로 향하는 것처럼, 지역 행성에서부터 활약하는 운송 개인성들이다.

천사들에 대한 너희의 전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유래되었다: 육체적 죽음 직전의 순간 동안, 때때로 어떤 반영적인 현상이 인간 마음 안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이러한 어슴푸레한 의식이 돌보고 있는 천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 개별존재의 마음 안에 습관처럼 붙잡고 있었던 천사의 개념에 대한 의미로 즉시 전환되는 것이다.

천사들이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개념은 그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옛날의 관념에서 전적으로 기인된 것은 아니다. 인간 존재들은 운송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라핌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체험에서의 전통들이 천사들에 대한 유란시아의 개념을 크게 결정해 왔다. 행성 사이의 운송을 위하여 승객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된 운송 세라핌천사를 목격할 때, 그 천사의 머리부터 발까지 뻗어 있는 두 쌍의 날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체 안에서 이들 날개들은 에너지 절연체—마찰 차단물—이다.

천상의 존재들이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운송되기 위하여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이게 될 때, 그들은 구체의 본부로 운송되며, 적당한 등록 과정을 마친 후에, 운송 수면상태에 들어간다. 그 동안 운송 세라핌천사는 행성의 우주 에너지 기둥 바로 위에 있는 수평 지점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에너지 차단물들이 열려 있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세라핌천사 보좌관들에 의해, 운송 천사의 바로 위쪽으로, 잠자는 개인성이 기술적으로 들어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위 쪽 쌍과 아래 쪽 쌍의 차단물들이 조심스럽게 닫히고 조절된다.

transferred to the new regime after the Adamic miscarriage, and they have ever since continued their labors on Urantia. And they have not been wholly unsuccessful since a civilization is now evolving which embodies much of their ideals of confidence and trust.

39:5.9 (438.2) In the more advanced planetary ages these seraphim enhance man's appreciation of the truth that uncertainty is the secret of contented continuity. They help the mortal philosophers to realize that, when ignorance is essential to success, it would be a colossal blunder for the creature to know the future. They heighten man's taste for the sweetness of uncertainty, for the romance and charm of the indefinite and unknown future.

39:5.10 (438.3) 5. *The Transporters.* The planetary transporters serve the individual worlds. The majority of enseraphimed beings brought to this planet are in transit; they merely stop over; they are in custody of their own special seraphic transporters; bu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uch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These are the transport personalities operating from the local planets, as from Urantia to Jerusalem.

39:5.11 (438.4) Your conventional idea of angels has been derived in the following way: During moments just prior to physical death a reflective phenomenon sometimes occurs in the human mind, and this dimming consciousness seems to visualize something of the form of the attending angel, and this is immediately translated into terms of the habitual concept of angels held in that individual's mind.

39:5.12 (438.5) The erroneous idea that angels possess wings is not wholly due to olden notions that they must have wings to fly through the air. Human beings have sometimes been permitted to observe seraphim that were being prepared for transport service, and the traditions of these experiences have largely determined the Urantian concept of angels. In observing a transport seraphim being made ready to receive a passenger for interplanetary transit, there may be seen what are apparently double sets of wings extending from the head to the foot of the angel. In reality these wings are energy insulators — friction shields.

39:5.13 (438.6) When celestial beings are to be enseraphimed for transfer from one world to another, they are brought to the headquarters of the sphere and, after due registry, are inducted into the transit sleep. Meantime, the transport seraphim moves into a horizontal position immediately above the universe energy pole of the planet. While the energy shields are wide open, the sleeping personality is skillfully deposited, by the officiating seraphic assistants, directly on top of the transport angel. Then both the upper and

그리고 나서, 변환자와 전송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세라핌천사들이 우주 순환회로들의 에너지 흐름들 속으로 날아갈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이상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세라핌천사는 양극단을 향하여 커지며 호박색 빛깔의 기묘한 빛으로 뒤덮임으로써, 세라핌천사 속에 들어간 개인성을 식별하는 것이 즉시 불가능해진다. 떠날 준비가 다 갖추어지면, 운송 우두머리가 그 생명 운송체에 대한 적절한 검열을 하고, 그 천사가 알맞게 순환회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해진 시험을 하며, 그 다음에는 여행자가 제대로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였다는 것과 에너지들이 조절되었다는 것과 천사가 절연(絶緣)되었다는 것 그리고 출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다 갖추어졌음을 선언한다. 그들 중에 두 명의 기계적 통제자들이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선다. 이때가 되면 운송 세라핌천사는 거의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진동하면서, 반짝거리는 발광물의 어뢰 모양의 윤곽선을 갖는다. 그때 영역의 운송 운행관리자가 대개 1,000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에너지 전송자들의 보조 중대들을 호출한다; 그는 운송의 목적지를 알리면서, 다가가서 세라핌천사 운송체의 바로 가까운 지점에 손을 대고, 세라핌천사 운송체는 번개 같은 속도로 앞으로 발사되어, 행성의 대기권이 계속되는 때까지 천상의 빛줄기 꼬리를 남긴다. 보강된 세라핌천사 시력으로 보더라도, 신기한 그 광경은 10분을 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행성 공간 보고서들이 지정된 영적 본부들의 정오에 받아들여지고 반면, 동일한 이 장소로부터 운송자들은 자정에 파송된다. 이때가 가장 알맞은 출발시간이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을 때 그때가 표준시간에 해당된다.

6. 기록자들. 이들은 그것이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할 때 그리고 우주 정부가 관련되고 관여할 때 행성의 주요 관련사들에 대한 보호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행성 관련사들을 기록하는 기능을 갖지만 개별적인 삶과 체험의 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7. 예비자들. 행성 세라핌천사들의 사타니아 예비무리단은 물질아들들의 예비자들과 밀접하게 관계적-연합하면서 예루셈에 주둔하고 있다. 풍부하게 많은 이 예비자들은 이 세라핌천사 계층의 복합적인 활동들의 각 위상을 준비한다. 이 천사들은 지역체계들의 개인적 소식 운송원이기도 하다. 그들은 과도기의 필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물질아들들뿐만 아니라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섬긴다. 유란시아가 현재 사타니아와 놀라시아택의 영적 순환회로들 밖에 있는 반면, 너희는 행성 사이의 관련사들과 다른 면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셈으로부터 이들 메신저들이 체계의 모든 다른 구체들에게

lower pairs of shields are carefully closed and adjusted.

39:5.14 (438.7) And n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nsformers and the transmitters, a strange metamorphosis begins as the seraphim is made ready to swing into the energy currents of the universe circuits. To outward appearance the seraphim grows pointed at both extremities and becomes so enshrouded in a queer light of amber hue that very soon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enseraphimed personality. When all is in readiness for departure, the chief of transport makes the proper inspection of the carriage of life, carries out the routine tests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 angel is properly encircuited, and then announces that the traveler is properly enseraphimed, that the energies are adjusted, that the angel is insulated, and that everything is in readiness for the departing flash. The mechanical controllers, two of them, next take their positions. By this time the transport seraphim has become an almost transparent, vibrating, torpedo-shaped outline of glistening luminosity. Now the transport dispatcher of the realm summons the auxiliary batteries of the living energy transmitters, usually one thousand in number; as he announces the destination of the transport, he reaches out and touches the near point of the seraphic carriage, which shoots forward with lightninglike speed, leaving a trail of celestial luminosity as far as the planetary atmospheric investment extends. In less than ten minutes the marvelous spectacle will be lost even to reinforced seraphic vision.

39:5.15 (439.1) While planetary space reports are received at noon at the meridian of the designated spiritual headquarters, the transporters are dispatched from this same place at midnight. That is the most favorable time for departure and is the standard hour when not otherwise specified.

39:5.16 (439.2) 6. *The Recorders.* These are the custodians of the major affairs of the planet as it functions as a part of the system, and as it is related to, and concerned in, the universe government. They function in the recording of planetary affairs but are not concerned with matters of individual life and existence.

39:5.17 (439.3) 7. *The Reserves.* The Satania reserve corps of the planetary seraphim is maintained on Jerusem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reserves of the Material Sons. These abundant reserves repletely provide for every phase of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is seraphic order. These angels are also the personal message bearers of the local systems. They serve transition mortals, angels, and the Material Sons as well as others domicil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ile Urantia is, at present, outside the spiritual circuits of Satania and Norlatiadek, you are otherwise in intimate touch with

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도 자주 오기 때문이다.

interplanetary affairs, for these messengers from Jerusalem frequently come to this world as to all the other spheres of the system.

제 6 장. 과도기 사명활동자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듯, 과도기 사명활동의 세라핌천사들은 물질적인 곳으로부터 영적인 곳으로의 창조체 변환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봉사한다. 이 천사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부터 체계 수도들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지만, 현재 사타니아에 있는 그들은 일곱 맨션세계들에 있는 생존된 필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를 집중시킨다. 이 사명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임무 구조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1. 세라핌천사 전도자.
2. 인종 통역자.
3. 마음 계획자.
4. 모론시아 조인자.
5. 기술자.
6. 기록자-교사.
7. 사명활동 예비자.

맨션세계들과 모론시아 삶을 다루면서 설명할 때 과도기의 상승자에 대한 이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에 관해 너희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제 7 장. 미래의 세라핌천사

이들 천사들은 네바돈의 비교적 오래된 영역들과 더욱 발전된 행성들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사명활동하지 않는다. 그들 중 많은 숫자는 구원자별에 가까운 세라핌천사 세계들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네바돈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밝아올 어떤 때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상승하는-필사자 생애와 관련되어 기능하지만 상승하는 변형된 계층들 중 어떤 하나에 의해 생존되는 그 인간들을 거의 배타적으로 돌본다.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 또는 유란시아 사람들에 관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매혹적인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제 8 장. 세라핌천사의 운명

세라핌천사들은 지역우주들에서 기원되며, 일부는 그들이 탄생된 바로 이 영역들에서 봉사운명을 성취한다. 선임 천사장들의 도움과 조언을

6. TRANSITION MINISTERS

^{39:6.1 (439.4)} As their name might suggest, seraphim of transitional ministry serve wherever they can contribute to creature transition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estate. These angels serve from the inhabited worlds to the system capitals, but those in Satania at present direct their greatest efforts toward the education of the surviving mortals on the seven mansion worlds. This ministry is diver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even orders of assignment:

- ^{39:6.2 (439.5)} 1. Seraphic Evangels.
- ^{39:6.3 (439.6)} 2. Racial Interpreters.
- ^{39:6.4 (439.7)} 3. Mind Planners.
- ^{39:6.5 (439.8)} 4. Morontia Counselors.
- ^{39:6.6 (439.9)} 5. Technicians.
- ^{39:6.7 (439.10)} 6. Recorder-Teachers.
- ^{39:6.8 (439.11)} 7. Ministering Reserves.

^{39:6.9 (439.12)} More about these seraphic ministers to transitional ascenders you will learn in connection with the narratives dealing with the mansion worlds and the morontia life.

7. SERAPHIM OF THE FUTURE

^{39:7.1 (440.1)} These angels do not minister extensively except in older realms and on the more advanced planets of Nebadon. Large numbers of them are held in reserve on the seraphic worlds near Salvington, where they are engaged in pursuits relevant to the sometime dawning of the age of light and life in Nebadon. These seraphim do function in connection with the ascendant-mortal career but minister almost exclusively to those mortals who survive by some one of the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39:7.2 (440.2)} Inasmuch as these angels are not now directly concerned with either Urantia or Urantians, it is deemed best to withhold the description of their fascinating activities.

8. SERAPHIC DESTINY

^{39:8.1 (440.3)} Seraphim are of origin in the local universes, and in these very realms of their nativity some achieve service destiny. With the help and counsel of the senior archangels some seraphim

받아 일부 세라핌천사들은 찬란한 저녁별의 고귀한 임무들로 등용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세라핌천사들은 저녁별들의 계시되지 않은 조화-협동들의 지위와 임무를 달성한다. 또 다른 세라핌천사는 시도될 수 있는 지역우주 운명을 향해 탐험하지만, 천사별은 모든 천사들의 영원한 목적지로 항상 남아있다. 천사별은 파라다이스와 신(神) 달성으로 들어가는 천사의 출입구, 시간의 사명활동으로부터 영원의 고귀한 임무로 옮기는 과도기 구체이다.

세라핌천사들은 수십 가지들의—수백의—방법으로 파라다이스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천상의 거장, 즉 기술 충고자 혹은 천상의 기록자로서 전문적 봉사의 완전을 성취함으로써 개인적 수용력으로 파라다이스 세라핌천사 거주지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음. 파라다이스 동행자가 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들의 중심에 도달하며, 아마도 그 후에 세라핌천사 계층들과 다른 존재들에게 영원한 사명활동자 그리고 충고자가 됨.

2. 천사별에 소환됨. 특정의 조건하에서 세라핌천사들은 높은 곳에서 명령을 받으며; 다른 환경들에서는 때로 필사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파라다이스를 성취한다. 그러나 어느 세라핌천사 쌍이 어떻게 조화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천사별이나 다른 곳을 향한 출발을 시작할 수 없다. 성공적인 운명 수호자들만이 진화적 상승의 진보 경로에 의해 파라다이스로의 진행에 확실히 될 수 있다. 모든 다른 존재들은 그들에게 높은 곳에 출현하라고 명령하는 소환장들을 갖고 오는 3차 초(超)천사의 파라다이스 메신저가 도착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

3. 진화적인 필사자 기법에 의해 파라다이스를 달성함. 시간의 생애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최극의 선택은 그들이 최종의 생애를 달성하고 그리고 세라핌천사 봉사의 영원한 구체들에 배치되도록 분별화되는 수호천사의 직책이다.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 안내자들은 운명의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이 신성한 운명의 경로에서 필사 창조체들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높은 운명을 그들 자신이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이 봉사를 위하여 분별화되는 모든 계층의 세라핌천사들 중에서 더욱 체험이 많은 천사 개인성들의 계급들로부터 모집된다. 모든 조절자-융합 운명의 생존하는 필사자에게는 일시적인 수호자들이 배정되며, 이 동료들은 필사 생존자들이 필수적인 지적 그리고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 영구적으로 배속될 수 있다. 필사 상승자들이 맨션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두 영구적인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을 소유한다. 사명활동 영들의 이 집단은 유란시아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may be elevated to the exalted duties of Brilliant Evening Stars, while others attain the status and service of the unrevealed co-ordinates of the Evening Stars. Still other adventures in local universe destiny may be attempted, but Seraphington ever remains the eternal goal of all angels. Seraphington is the angelic threshold to Paradise and Deity attainment, the transition sphere from the ministry of time to the exalted service of eternity.

39:8.2 (440.4) Seraphim may attain Paradise in scores — hundreds — of ways, but the most important as elaborated in these narratives are the following:

39:8.3 (440.5) 1. To gain admission to the Paradise seraphic abode in a personal capacity by achieving perfection of specialized service as a celestial artisan, a Technical Adviser, or a Celestial Recorder. To become a Paradise Companion and, having thus attained the center of all things, perhaps then to become an eternal minister and adviser to the seraphic orders and others.

39:8.4 (440.6) 2. To be summoned to Seraphington. Under certain conditions seraphim are commanded on high; in other circumstances angels sometimes achieve Paradise in a much shorter time than mortals. But no matter how fitted any seraphic pair may be, they cannot initiate departure for Seraphington or elsewhere. None but successful destiny guardians can be sure of proceeding to Paradise by a progressive path of evolutionary ascent. All others must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the Paradise messengers of the tertiary supernaphim who come with the summons commanding them to appear on high.

39:8.5 (440.7) 3. To attain Paradise by the evolutionary mortal technique. The supreme choice of seraphim in the career of time is the post of guardian angel in order that they may attain the career of finality and be qualified for assignment to the eternal spheres of seraphic service. Such personal guides of the children of time are called guardians of destiny, signifying that they guard mortal creatures in the path of divine destiny, and that in so doing they are determining their own high destiny.

39:8.6 (440.8) Guardians of destiny are drawn from the ranks of the more experienced angelic personalities of all orders of seraphim who have qualified for this service. All surviving mortals of Adjuster-fusion destiny have temporary guardians assigned, and these associates may become permanently attached when mortal survivors attain the requisit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Before mortal ascenders leave the mansion worlds, they all have permanent seraphic associates. This group of ministering spirits i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Urantia narratives.

인간 차원의 기원으로부터 하느님을 달성하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보다 약간 더 낮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바닥, 필사자 실존의 영적 저지대(低地帶)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저들에게 내려가서 그러한 창조체들을 한 발자국씩, 한 세계씩, 하보나의 정문을 향하여 선도(先導)할 수도 있도록 지혜롭게 배열되어 왔다. 필사자 상승자들이 하보나의 순환계들을 시작하기 위해 유버사를 떠날 때, 육신 속의 삶에 뒤이어 배정된 저들 수호자들은 대우주의 천사의 목적지, 천사별을 향하여 자신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들의 순례자 연관-동료들에게 일시적인 작별을 고향게 될 것이다. 이들 수호자들은 여기에서 세라핌천사 빛의 일곱 순환계들을 시도하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물질적 삶 동안 운명 수호자들로서 배정되었던 이 세라핌천사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는 하보나 순환계들에 두루 자신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동행하며, 어떤 다른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상승과 전혀 다른 길로 중앙우주의 순환회로들을 지나간다. 그러나 상승하는 경로와 상관없이, 모든 진화하는 세라핌천사들은 천사별을 통과하며, 대부분은 하보나 순환회로들 대신에 이 체험을 겪는다.

천사별은 천사들을 위한 운명 구체며, 이 세계에 대한 그들의 달성은 상승자별에서 갖는 필사자 순례자들의 체험들과 매우 다르다. 천사들은 그들이 천사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천사별에 도착한 천사들 중 빗나간 경우는 전혀 없었다; 완성된 세라핌천사의 가슴속에서 죄가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별의 졸업생들은 다양하게 배정되는데: 하보나-순환회로 체험을 가진 운명 수호자들은 대개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 편입된다. 하보나 격리 시험에서 통과된 다른 수호자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과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일부는 필사자 최종자의 영속하는 동료들이 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죽지 않는 다양한 최종자 무리단에 편입되며, 많은 숫자는 세라핌천사 완성의 무리단에 소집된다.

제 9 장. 세라핌천사 완성의 무리단

영들의 아버지에게 도달하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업무에 받아들여진 후에, 천사들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에 대한 사명활동에 언젠가 배정된다. 그들은 우주들의 높은 삼위일체화 존재들에게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고양(高揚)된 업무들에 배속된다. 지역우주들의 이 세라핌천사들은 중앙 그리고 초우주들의 사명활동 영들로부터 그들을 전에 격리시켰던 신성(神性) 잠재 안에서의 차이점들을 체험적으로 보상해 왔

39:8.7 (441.1) It is not possible for angels to attain God from the human level of origin, for they are created a “little higher than you”; but it has been wisely arranged that, while they cannot possibly start up from the very bottom, the spiritual lowlands of mortal existence, they may go down to those who do start from the bottom and pilot such creatures, step by step, world by world, to the portals of Havona. When mortal ascenders leave Uversa to begin the circles of Havona, those guardians of attachment subsequent to the life in the flesh will bid their pilgrim associates a temporary farewell while they journey to Seraphington, the angelic destination of the grand universe. Here will these guardians attempt, and undoubtedly achieve, the seven circles of seraphic light.

39:8.8 (441.2) Many, but not all, of those seraphim assigned as destiny guardians during the material life accompany their mortal associates through the Havona circles, and certain other seraphim pass through the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in a way that is wholly different from the mortal ascent. But irrespective of the route of ascent, all evolutionary seraphim traverse Seraphington, and the majority pass through this experience instead of the Havona circuits.

39:8.9 (441.3) Seraphington is the destiny sphere for angels, and their attainment of this world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s of the mortal pilgrims on Ascendington. Angels are not absolutely sure of their eternal future until they have attained Seraphington. No angel attaining Seraphington has ever been known to go astray; sin will never find response in the heart of a seraphim of completion.

39:8.10 (441.4) The graduates of Seraphington are variously assigned: Destiny guardians of Havona-circle experience usually enter the Mortal Finaliter Corps. Other guardians, having passed their Havona separation tests, frequently rejoin their mortal associates on Paradise, and some become the everlasting associates of the mortal finaliters, while others enter the various nonmortal finaliter corps, and many are mustered into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9. THE CORPS OF SERAPHIC COMPLETION

39:9.1 (441.5) After attainment of the Father of spirits and admission to the seraphic service of completion, angels are sometimes assigned to the ministry of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gain attachment to the high trinitized beings of the universes and to the exalted services of Paradise and Havona. These seraphim of the local universes have experientially compensated the differential in divinity potential formerly setting them

다.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천사들은 초우주 2품천사의 연관-동료들로서 그리고 최극 세라핌천사의 높은 파라다이스-하보나 계층들에 대한 보좌관들로서 봉사한다. 그러한 천사들에 대하여는 시간의 생애가 완결되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은 하느님의 종들이고 신성한 개인성들의 동행인들이며 파라다이스 최종자의 동반자들이다.

많은 숫자의 완성 세라핌천사들이 그들의 고향 우주들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체험적 완전의 사명활동에 의해 신성한 자질의 사명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네바돈은 보다 젊은 우주들 중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오래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숫자의 이 회귀(回歸) 천사별 졸업자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 우주는 충분한 숫자의 완성 세라핌천사들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진화적인 영역들이 그들이 빛과 생명의 지위에 접근함에 따라서 이들의 봉사가 점점 더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의의(意義)깊기 때문이다. 완성 세라핌천사들은 현재 세라핌천사의 최극(最極) 계층들과 함께 더욱 광범위하게 봉사하지만, 일부는 각각의 다른 천사 계층들과 함께 봉사한다. 심지어는 너희의 세계도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의 12개 특수 집단들의 광범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게 새롭게 임명된 각각의 행성영주와 동행한다.

많은 매혹적인 사명활동의 큰길들이 완성 세라핌천사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 모두가 파라다이스-이전(以前) 시대에 운명 수호자들로써 배정되기를 갈망하였던 것과 똑같이, 파라다이스-이후 체험에 있어서 그들은 육신화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중여 수행원들로서 봉사하기를 최고로 바란다. 그들은 진화 세계들의 필사 창조체들로 하여금 신성(神性)과 영원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하여 길고도 매혹적인 여행을 출발하게 하는 우주적 계획에 여전히 최극으로 헌신하고 있다.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을 성취하는 전체의 필사 모험 여행에 두루, 세라핌천사 완성의 이 영 사명활동자들은 시간의 신실하게 사명활동하는 영들과 함께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희의 진정한 친구이자 틀림없는 조력자들이다.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무리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는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apart from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central and superuniverses. Angel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serve as associates of the superuniverse seconaphim and as assistants to the high Paradise-Havona orders of supernaphim. For such angels the career of time is finished; henceforth and forever they are the servants of God, the consorts of divine personalities, and the peers of the Paradise finaliters.

39:9.2 (441.6) Large numbers of the completion seraphim return to their native universes, there to complement the ministry of divine endowment by the ministry of experiential perfection. Nebadon is, comparatively speaking, one of the younger universes and therefore does not have so many of these returned Seraphington graduates as would be found in an older realm; nonetheless our local universe is adequately supplied with the completion seraphim, for it is significant that the evolutionary realms disclose increasing need for their services as they near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Completion seraphim now serve more extensively with the supreme orders of seraphim, but some serve with each of the other angelic orders. Even your world enjoys the extensive ministry of twelve specialized groups of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thes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ccompany each newly commissioned Planetary Prince to the inhabited worlds.

39:9.3 (442.1) Many fascinating avenues of ministry are open to the completion seraphim, but just as they all craved assignment as destiny guardians in the pre-Paradise days, so in the post-Paradise experience they most desire to serve as bestowal attendants of the incarnated Paradise Sons. They are still supremely devoted to that universal plan of starting the mortal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ut upon the long and enticing journey towards the Paradise goal of divinity and eternity. Throughout the whole mortal adventure of finding God and of achieving divine perfection, these spirit ministers of seraphic completion, together with the faithful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re always and forever your true friends and unfailing helpers.

39:9.4 (442.2) [Presented by a Melchizedek acting by request of the Chief of the Seraphic Hosts of Nebadon.]

제 40 편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 039

유랜시아 책

041 ⇨

부 II. 지역우주

제 40 편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섹션

소개

- 제 1 장. 진화 세라핌천사
- 제 2 장. 상승하는 물질아들
- 제 3 장. 전환된 중도자
- 제 4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 제 5 장.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 제 6 장. 하느님의 신앙 아들
- 제 7 장. 아버지-융합 필사자
- 제 8 장. 아들-융합된 필사자
- 제 9 장. 영-융합된 필사자
- 제 10 장. 상승자 운명들

PAPER 40

THE ASCENDING SONS OF GOD

SECTIONS

Introduction

- 1. Evolutionary Seraphim
- 2. Ascending Material Sons
- 3. Translated Midwayers
- 4. Personalized Adjusters
- 5. Mortals of Time and Space
- 6. The Faith Sons of God
- 7. Father-Fused Mortals
- 8. Son-Fused Mortals
- 9. Spirit-Fused Mortals
- 10. Ascendant Destinies

소개

많은 주요 집단의 우주 존재들의 경우처럼,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일반적인 일곱 계층들이 계시되어 왔다:

- 1. 아버지-융합 필사자.
- 2. 아들-융합 필사자.
- 3. 영-융합 필사자.
- 4. 진화 세라핌천사.
- 5. 상승하는 물질아들.
- 6. 전환된 중도자.
-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진화 세계들의 낮은 동물-기원 필사자들로부터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이들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멀리 퍼지는 창조의 모든 우주들 안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두루, 신성한 사랑과 자비로운 겸손의 아낌없는 증여에 대한 영광스러운 낭송으로 발표하고 있다.

INTRODUCTION

40:0.1 (443.1) AS IN many of the major groups of universe beings, seven general classes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have been revealed:

40:0.2 (443.2) 1. Father-fused Mortals.

40:0.3 (443.3) 2. Son-fused Mortals.

40:0.4 (443.4) 3. Spirit-fused Mortals.

40:0.5 (443.5) 4. Evolutionary Seraphim.

40:0.6 (443.6) 5. Ascending Material Sons.

40:0.7 (443.7) 6. Translated Midwayers.

40:0.8 (443.8) 7. Personalized Adjusters.

40:0.9 (443.9) The story of these beings, from the lowly animal-origin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o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Universal Father, presents a glorious recital of the unstinted bestowal of divine love and gracious condescension throughout all time and in all universes of the far-flung creation of the Paradise

이들 발표들은 신(神)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집단 한 집단, 불멸(不滅)의 잠재성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가장 낮은 계층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존재들의 우주 눈금을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공간의 진화 세계에서의 기원된 한때의 필사자—나는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계층에 관하여, 특히 시간과 공간의 필사 창조체에 관하여,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듬고 그리고 계속하려고 구원자 별로부터 파송되었다.

이 이야기의 반이 넘는 부분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세 기본 계층들에 헌신될 것이기 때문에, 비(非)필사 상승계층의 아들관계—세라핌천사, 아담의, 중도자, 그리고 조절자—를 먼저 고찰될 것이다.

제 1 장. 진화 세라핌천사

동물 기원의 필사 창조체들만이 아들관계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천사무리 역시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는 지고의 기회를 공유한다. 수호 세라핌천사들 역시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가진 체험과 봉사를 통하여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한 천사들은 천사별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달성하며 많은 수는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소집되기도 한다.

하느님과 아들관계, 최종자의 숭고한 높이로 오르는 것은 천사에게 있어서 훌륭한 성취이고, 영원한 아들의 계획과 내주 하는 조절자의 항상-제시되어 있는 도움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존을 달성하는 것을 크게 초월하는 완성이다; 그러나 수호 세라핌천사들은, 그리고 간혹 다른 존재들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승을 이루어 낸다.

제 2 장. 상승하는 물질아들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은, 모두가 하강하는 아들들로 분류되는 멜기세덱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이어서 지역우주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행성 아담들—진화 세계들의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은 자신들이 기원된 구체들, 지역체계들의 수도(首都)들로부터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하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아담과 이브가 생물학적 제고자(提高者)로서의 행성 연관 사명을 전적으로 성공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있는 거주민들의 운명을 공유한다. 그러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진보된 단계들 속에 안주할 때, 신실한 이 물질아들과 딸은 모든 행성 행정-관리적 의무들을 사임하도록

Deities.

40:0.10 (443.10) These presentations began with a description of the Deities, and group by group, the narrative has descended the universal scale of living beings until it has reached the lowest order of life endowed with the potential of immortality; and now am I dispatched from Salvington — onetime a mortal of origin on an evolutionary world of space — to elaborate and continue the recital of the eternal purpose of the Gods respecting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mor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and space.

40:0.11 (443.11) Since the greater part of this narrative will be devoted to a discussion of the three basic orders of ascending mortals, consideration will first be given to the nonmortal ascending orders of sonship — seraphic, Adamic, midwayer, and Adjuster.

1. EVOLUTIONARY SERAPHIM

40:1.1 (443.5) Mortal creatures of animal origin are not the only beings privileged to enjoy sonship; the angelic hosts also share the supernal opportunity to attain Paradise. Guardian seraphim, through experience and service with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lso achieve the status of ascendant sonship. Such angels attain Paradise through Seraphington, and many are ev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40:1.2 (443.6) To climb to the supernal heights of finaliter sonship with God is a masterly achievement for an angel, an accomplishment far transcending your attainment of eternal survival through the plan of the Eternal Son and the ever-present help of the indwelling Adjuster; but the guardian seraphim, and occasionally others, do actually effect such ascensions.

2. ASCENDING MATERIAL SONS

40:2.1 (444.1) The Material Sons of God are created in the local universe along with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who are all classified as descending Sons. And indeed, the Planetary Adams —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the evolutionary worlds — are descending Sons, coming down to the inhabited worlds from their spheres of origin, the capitals of the local systems.

40:2.2 (444.2) When such an Adam and Eve are wholly successful in their joint planetary mission as biologic uplifters, they share the destiny of the inhabitants of their world. When such a world is settled in the advanced stages of light and life, this faithful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permitted to resign all planetary administrative duties, and after

용인되며, 하강하는 모험 여행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된 후에, 그들은 지역우주의 기록들 속에 완전해진 물질아들들로서 자신을 등록하도록 허락된다. 마찬가지로, 행성 임무가 길게 연기되었을 때에는, 고정된 지위의 물질아들들—지역체계들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구체들의 활동들로부터 물러나며 완전해진 물질아들들로서 비슷하게 등록된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 후에, 그러한 해방된 아담들과 이브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으며 그때 그들의 현재 지위와 영적 달성의 정확한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해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자 그리고 다른 상승하는 아들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는데,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영원한 봉사 속에서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한다.

제 3 장. 전환된 중도자

하강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행성 증여들로부터 즉각적인 유익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상승이 멀리 연기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신(新)시대들을 달성한 직후에 (그 이전에 없었다면), 중도 창조체들의 두 집단 모두가 행성의무로부터 풀려난다. 때로는 빛의 성전이 내려오고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직위로 승진하는 날 그들 중 대부분이 그들의 인간 친족들과 함께 변환되기도 한다. 행성 봉사에서 벗어남에 따라, 두 계층들은 모두 지역우주에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등록되며 물질세계들의 필사 종족들의 진보를 위해 준비된 바로 그 경로를 따라 긴 파라다이스 상승을 즉각적으로 시작한다. 1차 집단은 다양한 최종자 무리단이 되게 되어 있지만, 2차 또는 아담의-중도자들은 모두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에 모집되도록 길이 정해진다.

제 4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시간의 필사자들이 우주 아버지의 영 선물들과의 행성 관계적-연합에서 그들 혼의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을 때, 그러한 실패는 조절자에 속한 의무, 사명활동, 봉사, 또는 헌신 그 어떤 면에서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필사자가 죽으면서, 남기고 떠난 그러한 감시자들은 신성별로 돌아가고, 뒤 이어서, 생존 못한 자들의 판결에 이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로 다시 배정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종류의 반복된 봉사들 이후에 또는 육신화된 증여 아들의 내주 하는 조절자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은 어떤 비범한 체험을 가진 후에, 유능한 이 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개인성구현 된다.

being thus liberated from the descending adventure, they are permitted to register themselves as perfected Material Sons on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Likewise, when planetary assignment is long delayed, may the Material Sons of stationary status — the citizens of the local systems — withdraw from the activities of their status spheres and similarly register as perfected Material Sons. After these formalities such liberated Adams and Eves are accredited as ascending Sons of God and may immediately begin the long journey to Havona and Paradise, starting at the exact point of their then present status and spiritual attainment. And they make this journey in company with the mortal and other ascending Sons, continuing until they have found God and have achieved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in the eternal service of the Paradise Deities.

3. TRANSLATED MIDWAYERS

40:3.1 (444.3) Although deprived of the immediate benefits of the planetary bestowals of the descending Sons of God, though the Paradise ascent is long deferred, nevertheless, soon after an evolutionary planet has attained the intermediate epochs of light and life (if not before), both groups of midway creatures are released from planetary duty. Sometimes the majority of them are translated, along with their human cousins, on the day of the descent of the temple of light and the elevation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dignity of Planetary Sovereign. Upon being relieved of planetary service, both orders are registered in the local universe as ascending Sons of God and immediately begin the long Paradise ascent by the very routes ordained for the progression of the mortal races of the material worlds. The primary group are destined to various finaliter corps, but the secondary or Adamic midwayers are all routed for enrollment in the Mortal Corps of Finality.

4. PERSONALIZED ADJUSTERS

40:4.1 (444.4) When the mortals of time fail to achieve the eternal survival of their souls in planetary association with the spirit gifts of the Universal Father, such failure is never in any way due to neglect of duty, ministry, service, or devotion on the part of the Adjuster. At mortal death, such deserted Monitors return to Divinington, and subsequently,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he nonsurvivor, they may be reassigned to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Sometimes, after repeated services of this sort or following some unusual experience, such as functioning as the indwelling Adjuster of an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독특하면서도 불가해한 계층의 존재들이다. 실존적 전(前)개인적 지위의 기원으로서, 그들은 물질적 세계들의 낮은 필사자들의 삶과 생애에의 참여로서 체험을 쌓아왔다. 그리고 체험을 가진 이 생각 조절자들에게 증여된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가 그의 창조체 창조위에 체험적 개인성을 증여하는 개인적이고도 그리고 계속되는 사명활동에서 기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원천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 아들관계의 그러한 모든 계층들 중에서 최고로 분류된다.

제 5 장.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사슬에서 필사자들이 가장 마지막 고리를 대표한다. 기원의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 접촉은, 점점 감소되어가는 신성의 그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일련의 인간 개인성구현을 통하여, 너희와 매우 비슷한 존재, 너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아래로 옮겨간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신앙이 파악할 수도 있는 위대한 진리—영원한 하느님과 아들관계—를 영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기원의 무한한 영은, 점점 감소되어가는 신성의 그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인간 계층의 긴 일련에 점점 더 가까이 영역의 투쟁하는 창조체에게 다가가며, 시간의 필사 생애의 생명 여정에서 너희를 개인적으로 지키고 안내하는 천사들—그들보다 너희가 약간 더 낮게 창조된—들 안에서 표현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아버지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거의 한없는 숫자의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그렇게 가까운 개인적 접촉을 이루려 해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며, 올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낮은 창조체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에 힘을 잃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신성한 현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아버지 하느님이 너희와 직접적인 개인성 현시활동으로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 신성한 감시자의 정체성으로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의 것으로 계신다. 그리하여 개인성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너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아버지가, 개인성 순환회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필사 아들과 딸들과의 바로 그 혼들과의 내적 교제의 영 접촉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와 계신 것이다.

영 정체화구현이 개인적 생존의 비밀을 이룩하고 영적 상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생각 조절자들이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 사람과 정체성이 확인되는 잠재를 가진 유일한 융합의 영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은 이러한 신성한 선물들, 내주 하는 신비 감시자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incarnated bestowal Son, these efficient Adjusters are personalized by the Universal Father.

40:4.2 (445.1) Personalized Adjusters are beings of a unique and unfathomable order. Originally of existential prepersonal status, they have experientialized by participation in the lives and careers of the lowly mortals of the material worlds. And since the personality bestowed upon these experienced Thought Adjusters takes origin, and has its wellspring, in the Universal Father's personal and continuing ministry of the bestowals of experiential personality upon his creature creation, these Personalized Adjusters are classified as ascending Sons of God, the highest of all such orders of sonship.

5. MORTALS OF TIME AND SPACE

40:5.1 (445.2) Mortals represent the last link in the chain of those beings who are called sons of God. The personal touch of the Original and Eternal Son passes on down through a series of decreasingly divine and increasingly human personalizations until there arrives a being much like yourselves, one you can see, hear, and touch. And then you are made spiritually aware of the great truth which your faith may grasp — sonship with the eternal God!

40:5.2 (445.3) Likewise does the Original and Infinite Spirit, by a long series of decreasingly divine and increasingly human orders, draw nearer and nearer to the struggling creatures of the realms, reaching the limit of expression in the angels — than whom you were created but a little lower — who personally guard and guide you in the life journey of the mortal career of time.

40:5.3 (445.4) God the Father does not, cannot, thus downstep himself to make such near personal contact with the almost limitless number of ascending creatur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the Father is not deprived of personal contact with his lowly creatures; you are not without the divine presence. Although God the Father cannot be with you by direct personality manifestation, he is in you and of you in the identity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the divine Monitors. Thus does the Father, who is the farthest from you in personality and in spirit, draw the nearest to you in the personality circuit and in the spirit touch of inner communion with the very souls of his mortal sons and daughters.

40:5.4 (445.5) Spirit identification constitutes the secret of personal survival and determines the destiny of spiritual ascension. And since the Thought Adjusters are the only spirits of fusion potential to be identified with man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are primarily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는 다음과 같다:

1. 조절자가 일시 또는 체험으로 머무는 필사자들.
2. 비(非)-조절자-융합 유형의 필사자들.
3. 조절자-융합 잠재의 필사자들.

제1 계열—과도기적 또는 체험적으로 조절자가 머무는 필사자들. 이 계열 명칭은 진화하는 모든 행성들을 위해서 일시적이며, 제2 계열의 저들을 제외한,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의 초기 단계들 동안에 사용된다.

제1 계열의 필사자들은 인류 진화의 초기 신(新)시대들 동안 공간 세계들 위에 거주하며 인간 마음들의 가장 원시인들의 유형들을 포용한다. 아담의-이전(以前) 유란시아와 비슷한 많은 세계들에는, 지극히 많은 숫자의 비교적 높고 더욱 발달된 유형의 원시인들이 생존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조절자와의 융합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여러 시대들에 걸쳐서, 사람이 더 높은 영적 의지 차원에 까지 사람이 상승하기 이전에, 조절자들은 그들이 육신에서의 잠깐의 삶 동안에 투쟁하는 이 창조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절자들이 그러한 의지 창조체들 속에 내주하는 순간 집단 수호천사들이 기능을 개시한다. 제1 계열의 이들 필사자들이 개인적인 수호자들을 갖지 못하지만, 한편 집단 보호관리자들을 갖는다.

체험적 조절자는 원시 인간 존재와 함께, 육신에서의 그의 전체 삶에 두루 여전히 남아있다. 조절자들은 원시인들의 진보에 많이 기여하지만 그러한 필사자들과의 영원한 연합을 형성할 수는 없다. 조절자들의 과도기 사명활동은 두 가지를 이룩한다: 첫째로, 그들은 진화적인 지능체의 본성과 활동에서 가치 있고 실제적인 체험, 다른 세계에서 더욱 발달된 존재들과 나중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귀중하게 될 체험을 획득한다. 둘째로, 조절자들의 과도기 체류는 뒤이어 가능하게 될 영 융합을 위한 그들의 필사자 주체들을 준비시키는 쪽으로 많이 기여한다. 하느님을 찾는 이러한 유형의 모든 혼들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영적인 포용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성취하며, 그렇게 지역우주 체제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된다. 아담의-이전(以前) 유란시아로부터 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로 나아갔다.

고난과 시련의 긴 시대들에 두루 영적 지능의 보다 높은 차원들을 향해 필사자 사람들이 올라가야 한다고 명령한 하느님들은 그 상승의 각 단계마다 그의 지위와 요구들을 주목한다; 진화하는 종족들의 초기 시대의 투쟁하는 이들 필사자에 대한 최종 심판에 있어서 그들은 신성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황홀하도록 자비롭다.

제2 계열—조절자 비(非)융합 유형의 필사자

relation to these divine gifts,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s. This classification is as follows:

- 40:5.5 (445.6) 1. Mortals of the transient or experiential Adjuster sojourn.
- 40:5.6 (445.7) 2. Mortals of the non-Adjuster-fusion types.
- 40:5.7 (445.8) 3. Mortals of Adjuster-fusion potential.

40:5.8 (445.9) *Series one — mortals of the transient or experiential Adjuster sojourn.* This series designation is temporary for any evolving planet, being us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all inhabited worlds except those of the second series.

40:5.9 (445.10) Mortals of series one inhabit the worlds of space during the earlier epochs of the evolution of mankind and embrace the most primitive types of human minds. On many worlds like pre-Adamic Urantia great numbers of the higher and more advanced types of primitive men acquire survival capacity but fail to attain Adjuster fusion. For ages upon ages, before man's ascent to the level of higher spiritual volition, the Adjusters occupy the minds of these struggling creatures during their short lives in the flesh, and the moment such will creatures are indwelt by Adjusters, the group guardian angels begin to function. While these mortals of the first series do not have personal guardians, they do have group custodians.

40:5.10 (446.1) An experiential Adjuster remains with a primitive human being throughout his entire lifetime in the flesh. The Adjusters contribute much to the advancement of primitive men but are unable to form eternal unions with such mortals. This transient ministry of the Adjusters accomplishes two things: First, they gain valuable and actual experience in the nature and working of the evolutionary intellect, an experience which will be invaluable in connection with later contacts on other worlds with beings of higher development. Second, the transient sojourn of the Adjusters contributes much towards preparing their mortal subjects for possible subsequent Spirit fusion. All God-seeking souls of this type achieve eternal life through the spiritual embrace of the Mother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thus becoming ascending mortals of the local universe regime. Many persons from pre-Adamic Urantia were thus advanced to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40:5.11 (446.1) The Gods who ordained that mortal man should climb to higher levels of spiritual intelligence through long ages of evolutionary trials and tribulations, take note of his status and needs at every stage of the ascent; and always are they divinely fair and just, even charmingly merciful, in the final judgments of these struggling mortals of the early days of the evolving races.

40:5.12 (446.2) *Series two — mortals of the non-*

들. 이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조절자들과의 영원한 연합을 초래할 수 없는 특별한 인간 존재들의 유형이다.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종족간의 유형 분류는 조절자 융합 요인이 아니다; 모든 그러한 필사자들은 동족이지만, 이들 조절자 비(非)융합 유형들은 의지 창조체들의 전적으로 다른 그리고 현저하게 변경된 계층이다. 비(非)호흡 존재들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하며, 조절자들과 보통 융합하지 않는 다른 많은 집단들이 있다.

제1 계열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의 각 구성원들은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 혼자만의 조절자의 사명활동을 받는다. 일시적인 삶 동안, 이들 조절자들은 필사자들이 융합 잠재를 가지는 다른 세계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내주의 그들 주체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 이러한 제2 계열의 필사자들 속에 순결의 조절자들이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인간 유형들은 흔히 능란하고 체험이 있는 감시자들과 연락한다.

동물-기원 창조체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에서, 이들 존재는 유란시아 유형의 필사자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헌신된 봉사를 받는다. 비(非)융합 행성들에서의 조절자들과 세라핌천사 협동은 융합 잠재의 세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제공 된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유란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체들에서 사명활동하고 필사자가 생존될 때, 생존되는 혼이 영 융합을 이룰 때 비슷하게 기능한다.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이러한 변경된 필사자 유형들과 만날 때, 너희는 그들과 의사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똑같은 체계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만 변경된 기법을 이용할 뿐이다. 이들 존재들은 영과 개인성 현시활동에서 너희 계층의 창조체 삶과 동일한데, 특정한 물리적 모습과 사실적 면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들이 생각 조절자들과 비(非)융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창조체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들과 왜 융합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들 중 일부는 어떤 특별한 행성 환경 속에서 실존이 유지되도록 존재들을 고안하려는 노력으로, 생명운반자들이 지능 의지 창조체들에 대한 우주 계획에서 조절자들과의 항구적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선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변경을 만들 필요성과 직면하고 있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상승 계획의 의도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부분인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3 계열—조절자-융합 잠재의 필사자들. 모든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은, 유란시아 종족과 같이, 동물 기원이다. 그들 중에는 조절자-융합 잠재를 갖는 1개-뇌, 2개-뇌, 3개-뇌를 가진 유형들이 있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중간 또는 2개-뇌를 가진 유형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1개-뇌를 가진 집단들

Adjuster-fusion types. These are specialized types of human beings who are not able to effect eternal union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Type classification among the one-, two-, and three-brained races is not a factor in Adjuster fusion; all such mortals are akin, but these non-Adjuster-fusion types are a wholly different and markedly modified order of will creatures. Many of the nonbreathers belong to this series, and there are numerous other groups who do not ordinarily fuse with Adjusters.

40:5.13 (446.3) Like series number one, each member of this group enjoys the ministry of a single Adjuster during lifetime in the flesh. During temporal life these Adjusters do everything for their subjects of temporary indwelling that is done on other worlds where the mortals are of fusion potential. The mortals of this second series are often indwelt by virgin Adjusters, but the higher human types are often in liaison with masterful and experienced Monitors.

40:5.14 (446.4) In the ascendant plan for upstepping the animal-origin creatures, these beings enjoy the same devoted service of the Sons of God as is extended to the Urantia type of mortals. Seraphic co-operation with Adjusters on the nonfusion planets is just as fully provided as on the worlds of fusion potential; the guardians of destiny minister on such spheres just as on Urantia and similarly function at the time of mortal survival, at which time the surviving soul becomes Spirit fused.

40:5.15 (446.5) When you encounter these modified mortal types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find no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m. There they speak the same system language but by a modified technique. These beings are identical with your order of creature life in spirit and personality manifestations, differing only in certain physical features and in the fact that they are nonfusible with Thought Adjusters.

40:5.16 (447.1) As to just why this type of creature is never able to fuse with the Adjusters of the Universal Father, I am unable to say. Some of us incline to the belief that the Life Carriers, in their efforts to formulate beings capable of maintaining existence in an unusual planetary environment,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making such radical modifications in the universe plan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that it becomes inherently impossible to bring about permanent union with the Adjusters. Often have we asked: Is this an intended or an unintended part of the ascension plan? but we have not found the answer.

40:5.17 (447.2) *Series three — mortals of Adjuster-fusion potential.* All Father-fused mortals are of animal origin, just like the Urantia races. They embrace mortals of the one-brained, two-brained, and three-brained types of Adjuster-fusion potential. Urantians are of the intermediate or two-

보다 우월하지만 3개-뇌를 가진 계층들과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제한된다. 물리적인-뇌 자질의 이 세 가지 유형들은 조절자 증여에 있어서, 세라핌 천사 봉사에 있어서, 또는 영 사명활동의 어떤 다른 위상에 있어서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세 가지 뇌 유형들 사이의 지적 그리고 영적 차이는 현세적인 삶 속에서 가장 크고 맨션세계들을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존재,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 자질과 영적 잠재에서 매우 비슷했을 개별존재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체계 본부들과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들의 진보가 같아지고, 그들의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운명은 동일하다.

무(無)번호 계열들. 이 이야기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황홀한 변동들을 포용할 수는 없다. 열 번째 세계들마다 10진법 소수 즉 실험 행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만 진화 구체들의 행진상태를 소수점으로 찍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같은 집단의 행성들 사이의 차이처럼, 살아있는 창조체의 계시된 계층들 사이의 차이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많긴 하지만, 이 발표가 상승 생애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명백하게 밝힌다. 그리고 상승 생애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에 대한 어떤 고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필사자 생존의 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언제까지나 분명하게 해두자: 필사자 실존의 온갖 가능한 위상의 모든 혼들은,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협동하는 데 기꺼움을 분명히 현시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바램들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인간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에 대한 원시적인 이해의 희미한 첫 번째 불빛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생존될 것이다.

제 6 장. 하느님의 신앙 아들

필사 종족들은 지능과 개인적 창조의 가장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너희 필사자들은 신성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들 각자 모두는 영광스러운 체험의 특정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아직은 본성으로 신성한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전적으로 필사 존재이다. 너희는 순간적인 융합이 일어나는 상승하는 아들로서 간주되지만, 시간과 공간에서의 필사자들의 지위는 생존되는 필사자 혼이 영원하고 불멸의 영의 어떤 유형과 최종으로 합병이 일어나는 사건 이전에 있는 신앙의 아들이다.

유란시아의 인간 존재들과 같은 그러한 낮고 물질적인 창조체들이 하느님의 아들들, 지고자의 신앙 자녀라는 사실은 엄숙하고도 숭고한 사실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

brained type, being in many ways humanly superior to the one-brained groups but definitely limited in comparison with the three-brained orders. These three types of physical-brain endowment are not factors in Adjuster bestowal, in seraphic service, or in any other phase of spirit ministry.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ifferential between the three brain types characterizes individuals who are otherwise quite alike in mind endowment and spiritual potential, being greatest in the temporal life and tending to diminish as the mansion worlds are traversed one by one.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on, the progression of these three types is the same, and their eventual Paradise destiny is identical.

40:5.18 (447.3) *The unnumbered series.* These narratives cannot possibly embrace all of the fascinating variations in the evolutionary worlds. You know that every tenth world is a decimal or experimental planet, but you know nothing of the other variables that punctuate the processional of the evolutionary spheres. There are differences too numerous to narrate even between the revealed orders of living creatures as between planets of the same group, but this presentation makes clear the essential differences in relation to the ascension career. And the ascension care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ny consideration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40:5.19 (447.4) As to the chances of mortal survival, let it be made forever clear: All souls of every possible phase of mortal existence will survive provided they manifest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and exhibit a desire to find God and to attain divine perfection, even though these desires be but the first faint flickers of the primitive comprehension of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6. THE FAITH SONS OF GOD

40:6.1 (447.5) The mortal races stand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lowest order of intelligent and personal creation. You mortals are divinely beloved, and every one of you may choose to accept the certain destiny of a glorious experience, but you are not yet by nature of the divine order; you are wholly mortal. You will be reckoned as ascending sons the instant fusion takes place, but the status of the mortals of time and space is that of faith sons prior to the event of the final amalgamation of the surviving mortal soul with some type of eternal and immortal spirit.

40:6.2 (448.1) It is a solemn and supernal fact that such lowly and material creatures as Urantia human beings are the sons of God, faith children of the Highest.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었으니,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증여하셨는지 보라.”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아들됨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그가 이미 주셨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장차 무엇이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하느님의 신앙 아들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또 다시 두려워할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관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서 너희는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다.” 옛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도 나는 내 집에서 아들들보다 더 좋은 이름과 자리를 줄 것이다; 그들에게 영속하는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므로, 하느님께서 너희들 가슴속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거주되는 모든 진화세계에는 이들 하느님의 신앙 아들, 은혜와 자비의 아들, 신성한 가족에 속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필사 존재들이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들로 여길 자격이 있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너희는 영적 약속에서의 아들들, 신앙 아들들이다. 너희는 아들관계의 지위를 받아들인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관계를 실체 안에서 믿으며, 그리고 그로서 하느님과 너희의 아들관계는 영원토록 실체이다.

2.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사실 안에서 너희의 맏형이다; 너희가 만일 참으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승리를 거둔 미가엘과 관계되어진 형제가 되면, 그러면 너희는 또한 영 안에서 너희가 공동으로 가지는 아버지—또한 모든 존재의 우주 아버지—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3.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 있고, 모든 유란시아 종족에게 값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증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이다. 이 영은 너희를 그 근원이 되는 신성한 아들에게로, 그리고 신성한 아들의 근원이 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로 언제나 이끌 것이다.

4. 우주 아버지는, 그의 신성한 자유-의지성에서의, 창조체 개인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는 하느님이 그의 아들들이 될까 싶은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유의지 행동에서의 신성한 자발성을 어느 정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5. 너희 안에는 우주 아버지의 단편(斷片)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모든 하느님 아들의 신성한 아버지와 직접 관계가 있다.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the power to recognize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While “it does not yet appear what you shall be,” even now “you are the faith sons of God”; “for you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whereby you cry, ‘our Father.’” Spoke the prophet of old in the name of the eternal God: “Even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a place and a name better than sons; I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one that shall not be cut off.”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40:6.3 (448.2) All evolutionary worlds of mortal habitation harbor these faith sons of God, sons of grace and mercy, mortal beings belonging to the divine family and accordingly called the sons of God. Urantia mortals are entitled to regard themselves as being the sons of God because:

40:6.4 (448.3) 1. You are sons of spiritual promise, faith sons; you have accepted the status of sonship. You believe in the reality of your sonship, and thus does your sonship with God become eternally real.

40:6.5 (448.4) 2. A Creator Son of God became one of you; he is your elder brother in fact; and if in spirit you become truly related brothers of Christ, the victorious Michael, then in spirit must you also be sons of that Father which you have in common — even the Universal Father of all.

40:6.6 (448.5) 3. You are sons because the spirit of a Son has been poured out upon you, has been freely and certainly bestowed upon all Urantia races. This spirit ever draws you toward the divine Son, who is its source, and toward the Paradise Father, who is the source of that divine Son.

40:6.7 (448.6) 4. Of his divine free-willness, the Universal Father has given you your creature personalities. You have been endowed with a measure of that divine spontaneity of freewill action which God shares with all who may become his sons.

40:6.8 (448.7) 5. There dwells within you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you are thus directly related to the divine Father of all the Sons of God.

제 7 장. 아버지-융합 필사자

조절자들을 보냄, 그들의 내주(內住)는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의 심오한 신비중의 하나이다.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의 이들 단편은 창조체 불멸성의 잠재를 지닌다. 조절자들은 불멸의 영들이며, 그들과의 연합은 융합된 필사자의 혼에 영

7. FATHER-FUSED MORTALS

40:7.1 (448.8) The sending of Adjusters, their indwelling, is indeed one of the unfathomable mysteries of God the Father. These fragment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carry with them the potential of creature immortality.

원한 생명을 부여한다.

너희 자신의 종족 중에서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이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 집단에 속한다. 너희는 현재 행성 아들, 아직은 상승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생명운반자들의 이식(移植)에 의해 발생되고 아담의-생명 주입에 의해 변경된 진화 창조체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로—심지어는 영광과 신성 달성의 최고 높이에 이르는—상승 잠재를 가진 아들들이며 너희는 자유의지로서 내주하는 조절자의 영성화 시키는 활동들과 협동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관계의 이 영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다. 너희와 너희 조절자가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융합될 때, 너희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는 사실로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보호관찰의 그리고 진화적인 행성에서 내주하는 사명활동의 조절자 생애를 자세히 전하는 것은 내 임무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상술하는 것은 너희 전체 생애를 포용한다. 나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특정 조절자 기능들을 언급한다. 내주하는 이들 하느님의 단편은 물리적인 실존의 초기 시절로부터 네바돈과 오르본톤에서의 상승하는 생애에 두루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 파라다이스 자체에 이르기까지 너희 존재 계층과 함께 있다. 그 후에, 영원한 모험여행에서, 이 동일한 조절자는 너희와 하나이며 너희에게 속한다.

이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는 명령을 받은 필사자들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희에게 증여하셔서, 자기 자신의 영을 너희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들에게 궁극적 완전을 요구한다. 시간의 필사자 구체들로부터 영원의 신성한 영역들에 이르는 필사자 상승에 관한 설명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이고 나의 임무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숭고한 이 모험은 필사자 사람의 최극 연구가 되어야 한다.

우주 아버지의 단편과의 융합은 결국 생겨나는 파라다이스 달성의 신성한 인준과 동등하며, 그러한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모두 지나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한, 인간 존재들의 유일한 등급이다.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에게는 우주봉사의 생애가 넓게 열려져 있다. 너희들 각자 앞에 얼마나 엄청난 운명의 존엄성과 달성의 영광이 놓여있는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너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너희는—비록 너희가 너희의 소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삶의 초라한 길을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지만,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성취의 절정의 장엄함을 이해하는가?

Adjusters are immortal spirits, and union with them confers eternal life upon the soul of the fused mortal.

40:7.2 (448.9) Your own races of surviving mortals belong to this group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You are now planetary sons, evolutionary creatures derived from the Life Carrier implantations and modified by the Adamic-life infusion, hardly yet ascending sons; but you are indeed sons of ascension potential — even to the highest heights of glory and divinity attainment — and this spiritual status of ascending sonship you may attain by faith and by freewill co-operation with the spiritualizing activities of the indwelling Adjuster. When you and your Adjusters are finally and forever fused, when you two are made one, even as in Christ Michael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are one, then in fact have you become the ascending sons of God.

40:7.3 (449.1) The details of the Adjuster career of indwelling ministry on a probationary and evolutionary planet are not a part of my assignment; the elaboration of this great truth embraces your whole career. I include the mention of certain Adjuster functions in order to make a replete statement regarding Adjuster-fused mortals. These indwelling fragments of God are with your order of being from the early days of physical existence through all of the ascending career in Nebadon and Orvonton and on through Havona to Paradise itself. Thereafter, in the eternal adventure, this same Adjuster is one with you and of you.

40:7.4 (449.2) These are the mortals who have been commanded by the Universal Father,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The Father has bestowed himself upon you, placed his own spirit within you; *therefore* does he demand ultimate perfection of you. The narrative of human ascent from the mortal spheres of time to the divine realms of eternity constitutes an intriguing recital not included in my assignment, but this supernal adventure should be the supreme study of mortal man.

40:7.5 (449.3) Fusion with a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is equivalent to a divine validation of eventual Paradise attainment, and such Adjuster-fused mortals are the only class of human beings who all traverse the Havona circuits and find God on Paradise. To the Adjuster-fused mortal the career of universal service is wide open. What dignity of destiny and glory of attainment await every one of you! Do you fully appreciate what has been done for you? Do you comprehend the grandeur of the heights of eternal achievement which are spread out before you? — even you who now trudge on in the lowly path of life through your so-called “vale of tears”?

제 8 장. 아들-융합된 필사자

실천적으로 모든 생존되는 필사자들이 맨션 세계들 중 하나에서 또는 보다 높은 모론시아 구체들에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그들의 조절자들과 융합되는 반면, 융합이 지연되는 일정 경우들이 있다, 일부는 그들이 우주 본부들의 마지막 교육 세계들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에 대한 이 최종 확실성을 체험하지 못한다; 끝없는 생명을 향한 이들 필사자 후보자들 중 일부는 그들의 신실한 조절자들과의 정체성 융합 달성에 전적으로 실패한다.

그러한 필사자들은 판결 당국에 의해 생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왔고, 그들의 조절자들 또한 신성별에서 돌아옴으로써 맨션 세계들을 향한 그들의 상승에 일치해 왔다. 그러한 존재들은 체계, 별자리를 거쳐, 그리고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교육 세계들을 통하여 상승해 왔으며; 그들은 융합을 위한 기회를 “일흔 번씩 일곱 번” 맞았고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의 조절자들과 하나됨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떤 동조화하는 어려움이 아버지 융합을 억제하는 것이 명백할 때, 창조자 아들의 생존 심판관이 소환된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개인적 대표자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이 조사 법정이 융합 달성 실패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상승하는 필사자의 책임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들은 지역우주의 기록들 위에 그렇게 보증되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정식으로 이 결론을 보낸다. 그 결과로 내주하는 조절자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에게서 확인을 받으려고 신성별로 즉시 되돌아가며, 이러한 작별이 있고 나서 모론시아 필사자는 창조자 아들의 개별화된 선물과 즉시 융합된다.

네바돈의 모론시아 구체들을 영-융합 필사자들이 공유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이들 아들-융합 창조체들은 멀리 있는 파라다이스 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그들의 조절자-융합 형제들과 함께 오르본톤에 대한 봉사를 공유한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 형제들이며, 너희는 너희가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그들의 관계적-연합을 몹시 즐기게 될 것이다.

아들-융합 필사자들은 숫자가 많은 집단이 아니며, 오르본톤 초우주에는 백만 명 미만이 있다. 파라다이스에 거주하는 운명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조절자-융합 연관-동료들과 동등하다. 그들은 초우주 임무에 따라 파라다이스를 자주 여행하지만 그곳에 영구히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 집단으로서, 그들이 태어난 초우주에 국한되어 있다.

제 9 장. 영-융합된 필사자

8. SON-FUSED MORTALS

40:8.1 (449.4) While practically all surviving mortals are fused with their Adjusters on one of the mansion worlds or immediately upon their arrival on the higher morontia spheres, there are certain cases of delayed fusion, some not experiencing this final surety of survival until they reach the last educational worlds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a few of these mortal candidates for never-ending life utterly fail to attain identity fusion with their faithful Adjusters.

40:8.2 (449.5) Such mortals have been deemed worthy of survival by the adjudicational authorities, and even their Adjusters, by returning from Divinington, have concurred in their ascension to the mansion worlds. Such beings have ascended through a system, a constellation, and through the educational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they have enjoyed the “seventy times seven” opportunities for fusion and still have been unable to attain oneness with their Adjusters.

40:8.3 (449.6) When it becomes apparent that some synchronizing difficulty is inhibiting Father fusion, the survival referees of the Creator Son are convened. And when this court of inquiry, sanctioned by a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ncients of Days, finally determines that the ascending mortal is not guilty of any discoverable cause for failure to attain fusion, they so certify on the records of the local universe and duly transmit this finding to the Ancients of Days. Thereupon does the indwelling Adjuster return forthwith to Divinington for confirmation by the Personalized Monitors, and upon this leave-taking the morontia mortal is immediately fused with an individualized gift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

40:8.4 (450.1) Much as the morontia spheres of Nebadon are shared with the Spirit-fused mortals, so do these Son-fused creatures share the services of Orvonton with their Adjuster-fused brethren who are journeying inward towards the far-distant Isle of Paradise. They are truly your brethren, and you will greatly enjoy their association as you pass through the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40:8.5 (450.2) Son-fused mortals are not a numerous group, there being less than one million of them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Aside from residential destiny on Paradise they are in every way the equals of their Adjuster-fused associates. They frequently journey to Paradise on superuniverse assignment but seldom permanently reside there, being, as a class, confined to the superuniverse of their nativity.

9. SPIRIT-FUSED MORTALS

상승하는 영-융합 필사자들은 셋째근원 개인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개인성 순환회로에 포함되어 있지만,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마음 영의 개별존재화와 융합하였다. 그러한 영 융합은 자연적인 삶의 기간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맨션세계들에서 필사자가 모른시아 실존으로서 다시 깨어날 때에만 발생된다. 융합 체험에는 중복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의지 창조체는 영 융합되거나, 아들 융합되거나, 또는 아버지와 융합된다. 조절자와 융합된 자들은 결코 영과 융합되거나 아들과 융합되지 않는다.

필사 창조체들의 이들 유형은 조절자-융합 후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절자들로 하여금 육신 속에서 삶 동안 내주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조절자들은 물질적인 삶의 기간 동안 그러한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제자 혼들과 영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조절자들은 그들이 조절자 융합을 위한 후보자들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 같이 필사자 본성—혼—의 바로 그 영 상대자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킨다. 필사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조절자들의 업무는 너희 자신의 종족들에서의 그들의 기능과 전적으로 동족이지만, 필사자 분해가 이루어질 때 조절자들은 이 영-융합 후보자들을 영구히 떠나며, 모든 신성한 감시자들의 본부, 신성별로 직접 나아가서, 그들 계층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러한 잠자는 생존자들이 맨션세계들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될 때, 떠나간 조절자의 자리는 관련 지역우주에서 무한한 영의 대표자,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의 개별존재화로써 채워진다. 이 영 주입(注入)은 생존되는 이 창조체들을 영-융합 필사자가 되게 한다. 그러한 존재들은 모든 면에서 볼 때 마음과 영에 있어서 너희와 동일하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동기생들인데, 융합 후보자의 너희 계층과 함께 그리고 아들과 융합되는 저들과 함께 공동으로 맨션 그리고 모른시아 구체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영-융합 필사자들이 그들의 상승하는 형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기원된 물질적 세계들에서 가졌던 인간 체험의 필사자 기억이 육체로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의의(意義)를 갖는 인간 삶에서의 그런 사건들의 영 부분(副本) 또는 복사본을 내주하는 조절자들이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융합 필사자들에게는 인간 기억이 잔존되는 그러한 기능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에 대한 조절자 복사본들은 충분하고도 온전한 것이지만, 이 획득물들은 떠나간 조절자들의 체험적 소유물이고 그들이 전에 내주하였던 창조체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그들이 네바돈의 모른시아 구체들의 부활실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마치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들, 이전(以前) 실존에서의 의식이 없는 창조체들이 된다.

40:9.1 (450.3) Ascending Spirit-fused mortals are not Third Source personalities; they are included in the Father's personality circuit, but they have fused with individualizations of the premind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Such Spirit fusion never occurs during the span of natural life; it takes place only at the time of mortal reawakening in the morontia existence on the mansion worlds. In the fusion experience there is no overlapping; the will creature is either Spirit fused, Son fused, or Father fused. Those who are Adjuster or Father fused are never Spirit or Son fused.

40:9.2 (450.4) The fact that these types of mortal creatures are not Adjuster-fusion candidates does not prevent the Adjusters from indwelling them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djusters do work in the minds of such beings during the span of material life but never become everlastingly one with their pupil souls. During this temporary sojourn the Adjusters effectively build up the same spirit counterpart of mortal nature — the soul — that they do in the candidates for Adjuster fusion. Up to the time of mortal death the work of the Adjusters is wholly akin to their function in your own races, but upon mortal dissolution the Adjusters take eternal leave of these Spirit-fusion candidates and, proceeding directly to Divinington, the headquarters of all divine Monitors, there await the new assignments of their order.

40:9.3 (450.5) When such sleeping survivors are repersonalized on the mansion worlds, the place of the departed Adjuster is filled by an individu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th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in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This spirit infusion constitutes these surviving creatures Spirit-fused mortals. Such beings are in every way your equals in mind and spirit; and they are indeed your contemporaries, sharing the mansion and morontia spheres in common with your order of fusion candidates and with those who are to be Son fused.

40:9.4 (450.6) There is, however, one particular in which Spirit-fused mortals differ from their ascendant brethren: Mortal memory of human experience on the material worlds of origin survives death in the flesh because the indwelling Adjuster has acquired a spirit counterpart, or transcript, of those events of human life which were of spiritual significance. But with Spirit-fused mortals there exists no such mechanism whereby human memory may persist. The Adjuster transcripts of memory are full and intact, but these acquisitions are experiential possessions of the departed Adjusters and are not available to the creatures of their former indwelling, who therefore awaken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ontia spheres of Nebadon as if they were newly created beings, creatures without consciousness of former existence.

지역우주의 그러한 자녀들은 연관된 세라핌 천사 그리고 케루빔에 의해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만든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기록들을 조회해봄으로써 다시 그것을 회상하여 그들의 예전 인간의 기억 대부분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물질적이고 그리고 필사자 삶에서 체험적으로 기원을 갖는 생존된 혼이, 필사자의 생겨난 일들 기억은 갖지 못한 반면, 과거 체험의 기억되지 않는 이들 생겨난 일들에 대해 체험적-인지-반응을 가지기 때문이다.

영-융합 필사자들이 기억되지 않는 과거에 체험한 생겨난 일들에 대해 듣게 될 때, 그 설명되는 생겨난 일에 실제의 감정적 느낌 그리고 사실의 지적 본질특성이 즉시 갖추어지는, 그러한 생존자의 혼(정체성) 안에는 체험적 인지의 즉각적 반응이 있다,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반응은 필사자 체험의 기억되지 않는 면들에 대한 재구성파 인지 그리고 인준을 이룬다.

심지어 조절자-융합 후보자들에서도, 영적 가치를 가진 인간 체험들만이 생존되는 필사자와 돌아오는 조절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 때문에 필사자의 생존에 뒤이어 즉시 기억되어진다. 영적 의미(意義)가 없는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들 조절자-융합자 조차도 생존되는 혼의 인지-반응 속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생겨난 일이 다른 이에게는 아니지만 한 필사자에게는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절자-기억하는 생겨난 일들의 그러한 저장을 모으고, 그리고는 이와 같이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게, 또 그들 중 어느 하나의 삶에서 영적 가치가 있었던 그 모든 체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같은 행성에서의 당대의 상승자 집단에게는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기법들을 매우 잘 납득하지만, 개인성 인지의 기법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어떤 개인성 상호간의 반응이 배어있기 위해서는 기억 그 자체와 그리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기법들이 인지의 충족과 함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관계적-연함에 있었던 개인성들이 상호 반응하는 것은 기억의 작용과는 아주 독립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영-융합 생존자는 그가 살았던 행성 섭리시대 이후에 자신의 고향 세계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육신으로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도 있다. 그러한 영 융합 자녀들은 지역우주의 봉사에 전반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 생애를 조사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들은 너희들처럼 파라다이스 최후의 무리단에 들어가는 높고도 고양된 운명을 같이 가질 수 없다; 오직 조절자-융합 필사자들만이 또는 특별하게 포용된 다른 상승 존재들만이, 영원한 신(神) 모험여행을 기다리는 그들의 계급으로 소집된다.

40:9.5 (451.1) Such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are enabled to repossess themselves of much of their former human memory experience through having it retold by the associated seraphim and cherubim and by consulting the records of the mortal career filed by the recording angels. This they can do with undoubted assurance because the surviving soul, of experiential origin in the material and mortal life, while having no memory of mortal events, does have a residual experiential-recognition-response to these unremembered events of past experience.

40:9.6 (451.2) When a Spirit-fused mortal is told about the events of the unremembered past experience, there is an immediate response of experiential recognition within the soul (identity) of such a survivor which instantly invests the narrated event with the emotional tinge of reality and with the intellectual quality of fact; and this dual response constitutes the reconstruction, recognition, and validation of an unremembered facet of mortal experience.

40:9.7 (451.3) Even with Adjuster-fusion candidates, only those human experiences which were of spiritual value are common possessions of the surviving mortal and the returning Adjuster and hence are immediately remembered subsequent to mortal survival. Concerning those happenings which were not of spiritual significance, even these Adjuster-fusers must depend upon the attribute of recognition-response in the surviving soul. And since any one event may have a spiritual connotation to one mortal but not to another, it becomes possible for a group of contemporary ascenders from the same planet to pool their store of Adjuster-remembered events and thus to reconstruct any experience which they had in common, and which was of spiritual value in the life of any one of them.

40:9.8 (451.4) While we understand such techniques of memory reconstruction fairly well, we do not grasp the technique of personality recognition. Personalities of onetime association mutually respond quite independently of the operation of memory, albeit, memory itself and the techniques of its reconstruction are necessary to invest such mutual personality response with the fullness of recognition.

40:9.9 (451.5) A Spirit-fused survivor is also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life he lived in the flesh by revisiting his nativity world subsequent to the planetary dispensation in which he lived. Such children of Spirit fusion are enabled to enjoy these opportunities for investigating their human careers since they are in general confined to the service of the local universe. They do not share your high and exalted destiny in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only Adjuster-fused mortals or other especially embraced ascendant beings are

영-융합 필사자들은 지역우주들의 영구 시민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운명을 열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우주 고향은 구원자별을 돌고 있는 세계들 중 여덟 번째 집단, 유란시아의 행성 전설에 의해 그려졌던 그것과 매우 흡사한 본성과 위치를 갖는 운명이자-하늘이다.

제 10 장. 상승자 운명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융합 필사자들은 한 지역우주에 국한된다; 아들-융합 생존자들은 한 초우주에 제한된다; 조절자-융합 필사자들은 우주들의 우주를 관통하도록 운명되어 있다. 필사자 융합의 영들은 항상 기원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그러한 영 실존개체들은 시원적 근원의 구체로 반드시 되돌아간다.

영-융합 필사자들은 지역우주에 속한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국한되어 있는 태어난 영역을 넘어서, 그들에게 가득 찼던 영의 공간 범위의 경계를 벗어나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아들-융합 상승자들도 마찬가지로 영 수여자질의 근원까지 상승하며, 창조자 아들의 진리 영이 연관된 신성한 사명활동자에 초점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융합 영”은 더욱 높은 우주의 반영 영으로 실행된다. 칠중 하느님의 지역우주 차원과 초우주 차원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영 관계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인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영 영들의 자녀들—창조자 아들의 2품천사 음성—안에서 어김없이 계시되고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의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으며, 필사자 아들이 영원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필사 존재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영원하게 융합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관적 기법 속에 있는 신비한 변수가 상승 기획에서 결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아들 융합과 영 융합이 파라다이스-달성 계획의 어떤 세부내용에서 설명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보상들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결론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최극 우주 통치자들이 세운 법칙들에 따라 펼쳐진다고 배웠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해 왔고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필사자들을 궁극적인 파라다이스 운명에 위탁하는 것은, 창조자 아들의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들이, 전적으로 더 높은 영역을 향하여 통과하는 저들을 위한 봉사에만 종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간-공간 우주들에 불공평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리고 지역우주 정부와 초우주 정부는 각각 상승하는 시민 지위의 영구 집단들이 제공되어

mustered into the ranks of those who await the eternal Deity adventure. Spirit-fused mortals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s; they may aspire to Paradise destiny, but they cannot be sure of it. In Nebadon their universe home is the eighth group of worlds encircling Salvington, a destiny-heaven of nature and location much like the one envisioned by the planetary traditions of Urantia.

10. ASCENDANT DESTINIES

40:10.1 (452:1) Spirit-fused mortals are, generally speaking, confined to a local universe; Son-fused survivors are restricted to a superuniverse; Adjuster-fused mortals are destined to penetrate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pirits of mortal fusion always ascend to the level of origin; such spirit entities unfailingly return to the sphere of primal source.

40:10.2 (452:2) Spirit-fused mortals are of the local universe; they do not, ordinarily, ascend beyond the confines of their native realm,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pace range of the spirit that pervades them. Son-fused ascenders likewise rise to the source of spirit endowment, for much as the Truth Spirit of a Creator Son focalizes in the associated Divine Minister, so is his “fusion spirit” implemented in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higher universes. Such spirit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may be difficult of explanation but not of discernment, being unmistakably revealed in those children of the Reflective Spirits — the secoraphic Voices of the Creator Sons. The Thought Adjuster, hailing from the Father on Paradise, never stops until the mortal son stands face to face with the eternal God.

40:10.3 (452:3) The mysterious variable in associative technique whereby a mortal being does not or cannot become eternally fused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may seem to disclose a flaw in the ascension scheme; Son and Spirit fusion do, superficially, resemble compensations of unexplained failures in some detail of the Paradise-attainment plan; but all such conclusions stand in error; we are taught that all these happenings unfold in obedience to the established laws of the Supreme Universe Rulers.

40:10.4 (452:4) We have analyzed this problem and have reached the undoubted conclusion that the consignment of all mortals to an ultimate Paradise destiny would be unfair to the time-space universes inasmuch as the courts of the Creator Sons and of the Ancients of Days would then be wholly dependent on the services of those who were in transit to higher realms. And it does seem to be no more than fitting that the local and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should each be

야 한다는 것이 더할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즉 그것으로 이들 관리-행정에서의 기능들이 영구 지위를 가진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들의 수고에 의하여, 아반돈터들과 수사시아들의 진화적 보완물들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할나위 없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승 기획은 시간-공간 관리-행정에 바로 그러한 상승하는 창조체 집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한다는 것이 이제는 매우 명백하다; 우리는 여러 번 궁금히 여겨왔다: 이 모든 것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이 창조자 아들들과 옛적으로 늘 계신 이에게 상승하는 영구 주민 집단을 제공하려고 고안한 모든-지혜 계획들의 의도된 일부분인가? 다가올 우주 시대들에서 이들 영역의 관련사들을 앞으로 옮기는 데 점점 더 유능하게 되어 갈, 진화된 시민관계의 계층을 제공하려고 고안한 모든-지혜 계획들의 의도된 일부분인가?

필사자 운명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거나 더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조절자-융합 상승자들은 영원한 미래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최종자로서의 광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생애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승하는 형제들보다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사자 생존의 신성한 계획에서의 선택하는 작용에는 그 어떤 편애도 없고, 그 어떤것도 제멋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조절자-융합 최종자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봉사 기회를 명백하게 누리지만 한편, 이러한 목표 달성은 초기 곧 채 안정되지 못한 신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완전 달성의 후기 곧 정착된 시대까지, 어떤 한 우주 또는 초우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분투에 참여하는 기회에서 그들을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최종자는 대우주의 일곱개 분할 전체에서 놀랍고도 멀리-퍼지는 과도기 봉사 체험을 획득하지만, 완성의 네바돈 무리단의 영-융합 고참들이 현재 특징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한 우주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그들은 통상적으로 획득하지 못한다. 이들 개별존재들은 1천만 개의 거주 세계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행성들의 시대에서 상승하는 행렬들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우주 시민들에 대한 충심어린 봉사에서, 초점화된 체험으로 생겨나는 지혜—권한 있는 지혜—의 높은 본질특성이 시간의 무르익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체험은 체험 위에 더해진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 자체로서 어느 지역우주의 안정에서도 사활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것은 영 융합자들이 그러한 것 같이, 유버사에서 거주 지위를 획득한 아들-융합 필사자들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존재들 중 일부는 오르본톤의 최초 신시대들에서 흩어져 나오며, 그들은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변영과 결국 생겨나는 안정에 항상-증강되는 봉사 기여를 만들어내는 통찰력-강화 지혜가 서서히 축적되는 어떤 기관을 대표한다.

provided with a permanent group of ascendant citizenship; that the functions of these administrations should be enriched by the efforts of certain groups of glorified mortals who are of permanent status, evolutionary complements of the abandoners and of the susatia. Now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present ascension scheme effectively provides the time-space administrations with just such groups of ascendant creatures; and we have many times wondered: Does all this represent an intended part of the all-wise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designed to provide the Creator Sons and the Ancients of Days with a permanent ascendant population? with evolved orders of citizenship that will become increasingly competent to carry forward the affairs of these realms in the universe ages to come?

40:10.5 (452.5) That mortal destinies do thus vary in no wise proves that one is necessarily greater or lesser than another, merely that they differ. Adjuster-fused ascenders do indeed have a grand and glorious career as finaliters spread out before them in the eternal futur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preferred above their ascendant brethren. There is no favoritism, nothing arbitrary, in the selective operation of the divine plan of mortal survival.

40:10.6 (453.1) While the Adjuster-fused finaliters obviously enjoy the widest service opportunity of all, the attainment of this goal automatically shuts them off from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agelong struggle of some one universe or superuniverse, from the earlier and less settled epochs to the later and established eras of relative perfection attainment. Finaliters acquire a marvelous and far-flung experience of transient service in all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but they do not ordinarily acquire that intimate knowledge of any one universe which even now characterizes the Spirit-fused veterans of the Nebadon Corps of Completion. These individuals enjoy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ascending processional of the planetary ages as they unfold one by one on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And in the faithful service of such local universe citizens, experience superimposes upon experience until the fullness of time ripens that high quality of wisdom which is engendered by focalized experience — *authoritative wisdom* — and this in itself is a vital factor in the settling of any local universe.

40:10.7 (453.2) As it is with the Spirit fusers, so is it with those Son-fused mortals who have achieved residential status on Uversa. Some of these beings hail from the earliest epochs of Orvonton, and they represent a slowly accumulating body of insight-deepening wisdom which is making ever-augmenting service contributions to the welfare and eventual settlement of the seventh

지역우주와 초우주 시민관계의 이 고정 계층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파라다이스 최종자가 최초의 외계 공간 차원에 해당하는 행성 체계들에서 신성을 확장하는 개척자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상승하는 진화적 투쟁을 하는 그들의 아들-융합 그리고 영-융합 형제들은 먼 훗날 오르본톤과, 외부 공간에 있는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이 은하계들로부터 광대한 영-탐색 격류로서의 그것의 자매 창조에 두루 부어지게 될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의 밀려오는 파도를 환영할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으면서 완전하게 된 초우주들의 체험적 평형을 유지하는 일에 기꺼이 이바지하리라는 것이 아주 가능하다.

영 융합자 중 대부분이 지역우주의 시민들로서 영구토록 봉사하는 반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만일 그들의 우주 사명활동 중 어떤 위상이 초우주에 그들의 개인적 현존을 필요하게 된다면, 그들을 더 높은 우주로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한 존재의 변환들이 이들 시민들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그러한 영-융합 필사자들을 출두시키라는 명령서들을 가지고 천상의 수호자가 도착할 때, 그들은 그렇게 상승하여 다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초우주의 피보호자들이 되며, 파라다이스 그리고 하보나의 봉사에 차례로 소환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천상의 수호자에 대한 보좌관들로서 영구토록 봉사한다.

그들의 영-융합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특정한 수정되는 변환들을 겪지 않는다면 아들 융합자들은 하보나를 지나가지도 않고 파라다이스를 달성하지도 않는다. 유익하고도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러한 변화들이 어떤 아들-융합 생존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면, 이 존재들은 중앙우주의 일곱 번째 순환회로들 위에서 때때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아들-융합 필사자들과 영-융합 필사자들이 실제로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데,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많은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아버지-융합 필사자들은 잠재적인 최종자이다; 그들의 목적지가 우주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도달하지만, 현재 우주 시대의 시야 내에서는 최종자는, 그런 상태로는, 운명 달성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미(未)완결된 창조체들—여섯 번째-단계 영들—로 남아 있으며 그래서 빛과 -생명-이전(以前) 지위의 진화하는 권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이다.

필사자 최종자가 삼위일체 포용되면—막강한 메신저(使者)와 같이, 삼위일체화 아들이 되면—그 때 최종자는 적어도 현재 우주 시대에서는 운명을 달성한 것이다. 막강한 메신저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곱 번째-단계 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포용은 다른 것들에 추가되

superuniverse.

40:10.8 (453.3) What the ultimate destiny of these stationary orders of local and of superuniverse citizenship will be we do not know, but it is quite possible that, when the Paradise finaliters are pioneering the expanding frontiers of divinity in the planetary system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their Son- and Spirit-fused brethren of the ascendant evolutionary struggle will be acceptably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the experiential equilibrium of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while they stand ready to welcome the incoming stream of Paradise pilgrims who may, at that distant day, pour in through Orvonton and its sister creations as a vast spirit-questing torrent from these now uncharted and uninhabited galaxies of outer space.

40:10.9 (453.4) While the majority of Spirit fusers serve permanently as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s, all do not. If some phase of their universe ministry should require their personal presence in the superuniverse, then would such transformations of being be wrought in these citizens as would enable them to ascend to the higher universe; and upon the arrival of the Celestial Guardians with orders to present such Spirit-fused mortals at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they would so ascend, never to return. They become wards of the superuniverse, serving as assistants to the Celestial Guardians and permanently, save for those few who are in turn summoned to the service of Paradise and Havona.

40:10.10 (453.5) Like their Spirit-fused brethren, the Son fusers neither traverse Havona nor attain Paradise unless they have undergone certain modifying transformations. For good and sufficient reasons, such changes have been wrought in certain Son-fused survivors, and these beings are to be encountered ever and anon on the seven circuits of the central universe. Thus it is that certain numbers of both the Son- and the Spirit-fused mortals do actually ascend to Paradise, do attain a goal in many ways equal to that which awaits the Father-fused mortals.

40:10.11 (453.6) Father-fused mortals are potential finaliters; their destination is the Universal Father, and him they do attain, but within the purview of the present universe age, finaliters, as such, are not destiny attainers. They remain unfinished creatures — sixth-stage spirits — and hence nonactive in the evolutionary domains of prelight-and-life status.

40:10.12 (454.1) When a mortal finaliter is Trinity embraced — becomes a Trinitized Son, such as a Mighty Messenger — then has that finaliter attained destiny, at least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Mighty Messengers and their fellows may not in the exact sense be seventh-stage spirits, but in

어 언젠가는 최종자가 일곱 번째-단계 영으로서 성취하게 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한다. 영-융합 또는 아들-융합 필사자들이 삼위일체화 된 후에는, 그들은 초우주 관리-행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되는 그러한 조절자-융합 상승자들과 함께 파라다이스 체험을 두루 통과한다. 현재는 미(未)완결된 창조체들인 최종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들 삼위일체화 선택의 아들 또는 달성의 아들들은 적어도 지금은 완결된 창조체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관계의 상승하는 계층의 운명들을 대조하면서 “보다 크다” 혹은 “보다 작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도무지 적당치 않다. 모든 그러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체 아들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는 상승하는 운명을 달성할 수도 있는 자신의 창조체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듯이, 상승자의 운명을 차별하는 분은 더욱 아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 각자를 사랑하고, 그 애정은 참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독특함에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며—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배타적으로 증여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다른 모든 사실들이 철저히 빛을 잃도록 만든다. 아들관계는 창조자에 대한 창조체의 최극의 관계이다.

필사자로서 너희는 이제 신성한 아들관계의 가족 안에 있는 너희 위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증여 아들의 삶의 체험에 의하여 그토록 강화되고 빛으로 밝혀진 파라다이스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 너희 자신의 것으로 있는 그토록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들을 이용해 볼 마땅한 책무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치와 모든 힘이 신성한 완전이라는 파라다이스 목표에 이르는 너희의 궁극적 달성을 보장하려고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addition to other things the Trinity embrace endows them with everything which a finaliter will sometime achieve as a seventh-stage spirit. After Spirit-fused or Son-fused mortals are trinitized, they pass through the Paradise experience with the Adjuster-fused ascenders, with whom they are then identical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superuniverse administration. These Trinitized Sons of Selection or of Attainment at least for now are finished creatures, in contrast to the finaliters, who are at present unfinished creatures.

40:10.13 (454.2) Thus, in the final analysis, it would be hardly proper to use the words “greater” or “lesser” in contrasting the destinies of the ascending orders of sonship. Every such son of God shares the fatherhood of God, and God loves each of his creature sons alike; he is no more a respecter of ascendant destinies than is he of the creatures who may attain such destinies. The Father loves *each* of his sons, and that affection is not less than true, holy, divine, unlimited, eternal, and unique — a love bestowed upon *this* son and upon *that* son, individually, personally, and exclusively. And such a love utterly eclipses all other facts. Sonship is the supreme relationship of the creature to the Creator.

40:10.14 (454.3) As mortals you can now recognize your place in the family of divine sonship and begin to sense the obligation to avail yourselves of the advantages so freely provided in and by the Paradise plan for mortal survival, which plan has been so enhanced and illuminated by the life experience of a bestowal Son. Every facility and all power have been provided for insuring your ultimate attainment of the Paradise goal of divine perfection.

40:10.15 (454.4)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taff of Gabriel of Salvington.]

제 41 편 지역우주의 물리적 측면

⇨ 040

유랜시아 책

042 ⇨

부 II. 지역우주

제 41 편 지역우주의 물리적 측면

섹션

소개

제 1 장. 네바돈 힘 중심

제 2 장. 사타니아 물리통제자

제 3 장. 우리의 별 연관-동료들

제 4 장. 태양 밀도(密度)

제 5 장. 태양 방사

제 6 장. 칼슘—우주의 미아(迷兒)

제 7 장. 태양 에너지의 근원

제 8 장. 태양 에너지 반응

제 9 장. 태양 안정성

제 10 장. 거주 세계들의 기원

소개

각각의 지역 창조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떼어놓는 특징적인 공간 현상은 창조 영의 현존이다. 네바돈 전체는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공간 현존에 의해 확실하게 충만 되어 있으며, 바로 그러한 현존은 우리 지역우주의 외부 경계선에서 확실하게 차단된다. 우리 지역우주 어머니 영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진 그것이 네바돈이다; 그녀의 공간 현존 너머로 확장하는 그것이 외계 네바돈인데, 오르본톤 초우주의 가외(加外)-네바돈 공간—다른 지역우주—이다.

대우주의 행정 조직이 중앙우주와 초우주 그리고 지역우주 정부들 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드러내는 반면, 그리고 이 구분들이 하보나의 공간 분리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 천문학상으로 병렬 구조를 갖는 반면, 물리적인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들이 지역 창조계들을 구별시키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대구역 영역들과 소구역 영역들까지

PAPER 41

PHYSICAL ASPECTS OF THE LOCAL UNIVE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badon Power Centers

2.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3. Our Starry Associates

4. Sun Density

5. Solar Radiation

6. Calcium — The Wanderer of Space

7. Sources of Solar Energy

8. Solar-Energy Reactions

9. Sun Stability

10. Origin of Inhabited Worlds

INTRODUCTION

41:0.1 (455.1) THE characteristic space phenomenon which sets off each local creation from all others is the presence of the Creative Spirit. All Nebadon is certainly pervaded by the space presence of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and such presence just as certainly terminates at the outer borders of our local universe. That which is pervaded by our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s Nebadon; that which extends beyond her space presence is outside Nebadon, being the extra-Nebadon space region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 other local universes.

41:0.2 (455.2) Whil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grand universe discloses a clear-cut divis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entral, super-, and local universes, and while these divisions are astronomically paralleled in the space separation of Havona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no such clear lines of physical demarcation set off the local

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지역우주들의 물리적 경계들을 정체성 확인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 지역 창조계들이 초우주의 전체 에너지 전하(電荷)의 분할을 다스리는 어떤 창조적 원칙들에 입각하여 행정-관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반하여, 그들의 물리적 요소들, 공간의 구체들—태양들, 흑암 섬들, 행성들, 기타들—은 일차적으로 성운으로부터 기원되며, 이것들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특별한 창조-이전(선형적)의 계획들에 따라 그들의 천문학적 외양을 결정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많은 숫자라 할지라도—그러한 성운은 네바돈이 안드로노바 그리고 다른 성운의 별들과 행성 산물들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역우주의 권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네바돈의 구체들은 다양한 성운 조상에게 속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현재 공간 본체의 집합체를 산출할 만큼 힘에 대한 지능적 노력에 의해 조절된 공간 운동의 특정 최소 공통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초우주의 궤도 위에서 하나의 인접된 단위로서 함께 움직인다.

그러한 것은 네바돈의 지역 별 구름을 구성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역 창조가 소속하고 있는 오르본톤의 소구역인 궁수(弓手)자리 주변에서 점점 더 안정된 궤도에서 회전하고 있다.

제 1 장. 네바돈 힘 중심

공간 구체들의 어머니 회전바퀴들인 나선형의 또 다른 성운(星雲)들은 파라다이스 기체조직자들에 의해 태동되었다; 중력 반응의 성운 진화에 이어서, 그것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초우주 기능을 대신하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별 모양과 행성의 산출물의 결과적인 세대들에 대한 물리적 진화를 지도할 충분한 책임을 지게 된다. 네바돈의 우주-이전(以前) 상태에 대한 이 물리적 감독은 우리의 창조자 아들이 도래함에 따라 우주 조직을 위한 그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조화-협동된다.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권역 안에서 최극 힘 중심들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이 네바돈의 다양한 공간 본체들을 하나의 집대성된 행정-관리적 단위가 되도록 견고하게 묶는 통신 회선, 에너지 순환회로 그리고 힘 통로들의 광대한 복합체를 산출하기 위해,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협동하였다.

네 번째 계층인 100명의 최극 힘 중심들이 영구적으로 우리 지역우주에 배정되어 있다. 이 존재들은 유머사의 제3 계층 중심들로부터 힘의 유

creations. Even the major and minor sectors of Orvonton are (to us) clearly distinguishable, but it is not so easy to identify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local universes. This is because these local creations are administratively organized in accordance with certain *creative* principles governing the segmentation of the total energy charge of a superuniverse, whereas their physical components, the spheres of space — suns, dark islands, planets, etc. — take origin primarily from nebulae, and these make their astronomical appearance in accordance with certain *precreative* (transcendental) plan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41:0.3 (455.3) One or more — even many — such nebulae may be encompassed within the domain of a single local universe even as Nebadon was physically assembled out of the stellar and planetary progeny of Andronover and other nebulae. The spheres of Nebadon are of diverse nebular ancestry, but they all had a certain minimum commonness of space motion which was so adjusted by the intelligent efforts of the power directors as to produce our present aggregation of space bodies, which travel along together as a contiguous unit over the orbits of the superuniverse.

41:0.4 (455.4) Such is the constitution of the local star cloud of Nebadon, which today swings in an increasingly settled orbit about the Sagittarius center of that minor sector of Orvonton to which our local creation belongs.

1. THE NEBADON POWER CENTERS

41:1.1 (455.5) The spiral and other nebulae, the mother wheels of the spheres of space, are initiated by Paradise force organizers; and following nebular evolution of gravity response, they are superseded in superuniverse function by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who thereupon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directing the physical evolution of the ensuing generations of stellar and planetary offspring. This physical supervision of the Nebadon preuniverse was, upon the arrival of our Creator Son, immediately coordinated with his plan for universe organization. Within the domain of this Paradise Son of God, the Supreme Power Centers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collaborated with the later appearing Morontia Power Supervisors and others to produce that vast complex of communication lines, energy circuits, and power lanes which firmly bind the manifold space bodies of Nebadon into one integrated administrative unit.

41:1.2 (456.1) One hundred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fourth order are permanently assigned to our local universe. These beings receive the incoming lines of power from the third-order centers of

입 계통들을 받아들이며 낮추어지고 변형된 순환 회로들을 우리들의 별자리들 그리고 체계들의 힘 중심들에게 전달한다. 이 힘 중심들은 다른 방법으로 오르내리고 변화하는 에너지들의 평형 그리고 분배를 유지시키도록 작동하는 통제 그리고 균일화의 살아있는 체계를 산출하기 위해 서로 연관하여 기능한다. 아무튼 힘 중심들은 태양 흑점들 그리고 체계 전기적 교란들과 같은, 과도기고 지역적인 에너지 상승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빛과 에너지는 공간의 기본 에너지들이 아니며; 그것들은 2차적이고 보조적인 현시활동들이다.

100명의 지역우주 중심들이 구원자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 구체의 정확한 에너지 중심지에서 기능한다.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과 같은 고안건축 구체들은 공간에 있는 태양들로부터 그들을 매우 독립적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에 의해 빛이 비추고 열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 구체들은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건설되며—정돈되며—에너지 분배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한 에너지 통제의 초점들에 대한 그들의 활동들에 기본을 두고, 힘 중심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현존에 따라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들의 방향을 잡고 통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 순환회로들은 물리적-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영적 현상들 전체에 기본을 이룬다.

다섯 번째 계층인 10명의 최극 힘 중심들이 네바돈의 1차 구역들, 100개 별자리들 각각에게 배정되어 있다. 너희의 별자리인 놀라시아텍 안에서 그들은 본부 구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자리의 물리적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모양의 체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에덴시아에는 가까이 있는 힘 중심들과 완전하고도 일정한 연락에 있는 10명의 연관-동료 기계적 통제자들과 10명의 후란달랑크들이 존재한다.

여섯 번째 계층의 최극 힘 중심 1명이 지역체계 각각의 정확한 중력 초점에 위치하고 있다. 사타니아 체계 안에는 배정된 힘 중심이 체계의 우주적 중심에 위치한 공간의 흑암 섬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흑암 섬들 중 많은 것들은 특정한 공간-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방향을 잡는 거대한 발전기들이며, 자연적인 이 환경들은 사타니아 힘 중심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의 살아있는 몸체는 보다 높은 중심들과 연락하여 기능하고, 우주의 진화적인 행성들 위에서 더욱 물질화된 힘의 흐름들로 하여금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향하게 한다.

제 2 장. 사타니아 물리통제자

주(主)물리통제자들이 대우주에 두루 힘 중심들과 함께 봉사하는 반면, 사타니아와 같은 지역체계 안에서의 그들의 기능들은 더욱 이해하기 쉽

Uversa and relay the down-stepped and modified circuits to the power centers of our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se power centers, in association, function to produce the living system of control and equalization which operates to maintain the balance and distribution of otherwise fluctuating and variable energies. Power centers are not, however, concerned with transient and local energy upheavals, such as sun spots and system electric disturbances; light and electricity are not the basic energies of space; they are secondary and subsidiary manifestations.

41:1.3 (456.2)

The one hundred local universe centers are stationed on Salvington, where they function at the exact energy center of that sphere. Architectural spheres, such as Salvington, Edentia, and Jerusem, are lighted, heated, and energized by methods which make them quite independent of the suns of space. These spheres were constructed — made to order — by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nd were designed to exert a powerful influence over energy distribution. Basing their activities on such focal points of energy control, the power centers, by their living presences, directionize and channelize the physical energies of space. And these energy circuits are basic to all physical-material and morontia-spiritual phenomena.

41:1.4 (456.3)

Ten Supreme Power Centers of the fifth order are assigned to each of Nebadon's primary subdivisions,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In Norlatiadek, your constellation, they are not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sphere but are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enormous stellar system which constitutes the physical core of the constellation. On Edentia there are ten associated mechanical controllers and ten frandalanks who are in perfect and constant liaison with the near-by power centers.

41:1.5 (456.4)

One Supreme Power Center of the sixth order is stationed at the exact gravity focus of each local system. In the system of Satania the assigned power center occupies a dark island of space located at the astronomic center of the system. Many of these dark islands are vast dynamos which mobilize and directionize certain space-energies, and these natural circumstances are effectively utilized by the Satania Power Center, whose living mass functions as a liaison with the higher centers, directing the streams of more materialized power to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on the evolutionary planets of space.

2.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41:2.1 (456.5)

While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serve with the power center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ir functions in a local system, such as Satania, are more easy of comprehension.

다. 사타니아는 놀라시아택 별자리의 행정-관리적 조직을 만드는 100개 지역체계들 중 하나인데, 샌드마티아, 아순티아, 포로기아, 란투리아, 소르토리아 그리고 글란토니아 체계들과 인접해 있다. 놀라시아택 체계들은 여러 가지 면들에서 다르지만, 사타니아와 매우 흡사하게 모두 진화적이고 진보적이다.

사타니아 자체는 7,000개 이상의 천체 집단들 또는 물리적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중 소수는 너희의 태양 체계가 기원된 것과 비슷하게 기원되었다. 사타니아의 천체 중심은, 그것에 부속된 구체들과 함께 체계 행정부의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간의 거대한 흑암 섬이다.

배정된 힘 중심의 현존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타니아의 전체 물리적-에너지 체계에 대한 관리는 예루셈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본부 구체에 위치한 주(主)물리통제자는 체계 힘 중심과 조화-협동하여 일하는데, 예루셈에 본부를 둔 힘 검열자들의 연락 우두머리로 봉사하고 지역 체계에 두루 기능한다.

에너지를 순회시키고 흐르게 하는 일은 사타니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500,000명의 살아있고 지능적 에너지 조종자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그러한 물리통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감독하는 힘 중심들은, 심하게 가열된 동그란 공들과 그리고 에너지-대전(帶電)된 흑암 구체들의 방사물을 포함하여, 공간의 기본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완벽하고도 완전한 통제 안에 두고 있다. 살아있는 실존 개체들의 이 집단은 조직화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 거의 전체를 동원하고, 변환시키고, 변화시키고, 조종하고, 보낼 수 있다.

생명은 우주적 에너지의 동원과 변화를 위한 선천적인 능력을 소유한다. 너희는 물질적인 빛 에너지가 식물계의 다채로운 현시활동으로 변환하는 것에서 식물 생명의 활동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식물 에너지가 동물 활동들의 현상들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의 일부를 알고 있지만, 힘 지도자들과 물리통제자의 기법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우주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변환시키며 방향을 잡고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을 천부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에너지 영역들의 이들 존재들은 살아있는 창조체들의 구성 요소로서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데, 생리적 화학의 권역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들은 기본적인 물질적 유기체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을 위한 물리적 매체들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체계들의 합성에 따라, 생명의 물리적 예비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 어떤 면에서 물리통제자들은 보조 마음-영들이 물질적 마음의 영적-이전(以前) 기능들과 관련

Satania is one of one hundred local systems which make up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having as immediate neighbors the systems of Sandmatia, Assuntia, Porogia, Sortoria, Rantulia, and Glantonion. The Norlatiadek systems differ in many respects, but all are evolutionary and progressive, very much like Satania.

41:2.2 (457.1) Satania itself is composed of over seven thousand astronomical groups, or physical systems, few of which had an origin similar to that of your solar system. The astronomic center of Satania is an enormous dark island of space which, with its attendant spheres, is situated not far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government.

41:2.3 (457.2) Except for the presence of the assigned power center, the supervision of the entire physical-energy system of Satania is centered on Jerusem. A Master Physical Controller, stationed on this headquarters sphere, works in co-ordination with the system power center, serving as liaison chief of the power inspectors headquartered on Jerusem and functioning throughout the local system.

41:2.4 (457.3) The circuitizing and channelizing of energy is supervised by the five hundred thousand living and intelligent energy manipulators scattered throughout Satania. Through the action of such physical controllers the supervising power centers are in complete and perfect control of a majority of the basic energies of space, including the emanations of highly heated orbs and the dark energy-charged spheres. This group of living entities can mobilize, transform, transmute, manipulate, and transmit nearly all of the physical energies of organized space.

41:2.5 (457.4) Life has inherent capacity for the mobilization and transmutation of universal energy. You are familiar with the action of vegetable life in transforming the material energy of light into the varied manifestations of the vegetable kingdom. You also know something of the method whereby this vegetative energy can be converted into the phenomena of animal activities, but you know practically nothing of the technique of the power directo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who are endowed with ability to mobilize, transform, directionize, and concentrate the manifold energies of space.

41:2.6 (457.5) These beings of the energy realms do not directly concern themselves with energy as a component factor of living creatures, not even with the domain of physiological chemistry. They are sometimes concerned with the physical preliminaries of life, with the elaboration of those energy systems which may serve as the physical vehicles for the living energies of elementary material organisms. In a way the physical

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에너지의 생명-이전 (以前) 현시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힘을 통제하고 에너지 방향을 지도하는 이 지능 창조체들은 그 행성의 물리적 구성과 고안건축물에 따라 각 구체에서 자신들의 기법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심하게 가열된 태양들과 다른 형태들의 극도로 대전(帶電)된 별들의 지역 영향에 관계하는 물리학자들 그리고 다른 기법 충고자들로 구성된 그들의 각 참모들의 계산과 추론을 충실하게 활용한다. 우주의 거대한 구름 그리고 거대한 흑암 덩어리 그리고 별 먼지의 많은 구름들조차도 함께 간주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전체는 에너지 조종에서의 실천적인 문제들 속에 관련되어 있다.

진화하는 거주 세계들에 대한 힘-에너지 감독은 주(主)물리통제자의 임무이지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잘못된 에너지 작용이 이들 존재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한 교란 현상들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일부는 물리적 보호관리자들의 권역과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다. 유란시아는 대단한 에너지들의 계통들에 속하는데, 거대한 물체들의 순환회로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며, 지역 통제자들은 이 에너지 계통들을 평형 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수많은 자기 계층을 이용하는 경우가 때로 있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리적 순환회로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하지만, 강력한 놀라시아텍 흐름들에 대항하여 차단시키는 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 3 장. 우리의 별 연관-동료들

사타니아 안에는 2,000개 이상의 찬란한 태양들이 빛과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너희 자신의 태양은 평균적인 타오르는 구체이다.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30개 태양들 중에서 세 개만이 더 밝다. 우주 힘 지도자들이 각각의 별들과 그들의 각 체계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분화된 에너지 흐름들을 일으킨다. 이 태양 용광로들은, 우주의 거대한 흑암 물체들과 함께, 물질적 창조들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을 효력 있게 집중시키고 방향을 정하기 위한 중간지점들로서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을 돕는다.

네바돈의 태양들은 다른 우주들의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 모든 태양들, 흑암 섬들, 행성들, 위성들 나아가 유성들까지도 그 물질적 구성이 상당히 동일하다. 이들 태양들은 평균적으로 직경이 1,000,000마일에 달하고, 너희 자신의 태양 동그란 공 존재는 그것보다 약간 작다. 우주 안에서 가장 큰 별인, 별 구름 안타레스는 너희 태양 직경의 450배에 달하며 부피는 6천만 배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들 모든 거대한 태양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그것들은 만일 12개의 오렌지들이 유란시아의 내부에 두루 회전하였다라

controllers are related to the preliving manifestations of material energy as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concerned with the prespiritual functions of material mind.

41:2.7 (457.6) These intelligent creatures of power control and energy direction must adjust their technique on each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physical constitution and architecture of that planet. They unfailingly utilize the calculations and deductions of their respective staffs of physicists and other technical advisers regarding the local influence of highly heated suns and other types of supercharged stars. Even the enormous cold and dark giants of space and the swarming clouds of star dust must be reckoned with; all of these material things are concerned in the practical problems of energy manipulation.

41:2.8 (457.7) The power-energy supervision of the evolutionary inhabited world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but these beings are not responsible for all energy misbehavior on Urantia.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such disturbances, some of which are beyond the domain and control of the physical custodians. Urantia is in the lines of tremendous energies, a small planet in the circuit of enormous masses, and the local controllers sometimes employ enormous numbers of their order in an effort to equalize these lines of energy. They do fairly well with regard to the physical circuits of Satania but have trouble insulating against the powerful Norlatiadek currents.

3. OUR STARRY ASSOCIATES

41:3.1 (458.1) There are upward of two thousand brilliant suns pouring forth light and energy in Satania, and your own sun is an average blazing orb. Of the thirty suns nearest yours, only three are brighter.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initiate the specialized currents of energy which play between the individual stars and their respective systems. These solar furnaces, together with the dark giants of space, serve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as way stations for the effective concentrating and directionizing of the energy circuits of the material creations.

41:3.2 (458.2) The suns of Nebadon are not unlike those of other universes. The material composition of all suns, dark islands, planets, and satellites, even meteors, is quite identical. These suns have an average diameter of about one million miles, that of your own solar orb being slightly less. The largest star in the universe, the stellar cloud Antares, is four hundred and fifty times the diameter of your sun and is sixty million times its volume. But there is abundant space to accommodate all of these enormous suns. They have just as much comparative elbow room in

면 그리고 행성이 속이 텅 빈 공이라면, 오렌지들이 공간 안에서 갖게 되었을 정도에 상당하는 움직일 여유를 갖고 있다.

너무 큰 태양들이 성운 어머니 회전바퀴에서 벗어나면, 그것들은 곧 부서지든지 아니면 2중성(二重星)을 형성한다. 모든 태양들은 비록 그것들이 나중에 과도기로 반(半)액체 상태 속에 존재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원적으로는 참으로 기체 상태이다. 너희 태양이 극도의 기체 압력을 가진 이러한 준(準)-액체 상태를 달성하였을 때, 그것은 적도에서 반으로 갈라지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었다, 그런 존재가 2중성 형성의 한 유형이다.

너희 태양의 10분의 1보다 작아질 때, 불타는 이들 구체들은 급속도로 수축되고 압축되며 냉각된다. 그것의 크기가 30배—오히려 실제 물질의 전체 내용물의 30배—이상이 될 때 태양들은 즉시 두 개의 개별 몸체들로 나뉘는데, 새로운 체계들의 중심들이 되든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중력 범위 속에 남아 이중적 별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 중심 주변을 회전한다.

오르본톤 안에서 가장 최근의 주요 우주 분출은 특출한 2중성의 폭발이었는데, 이 빛은 서기 1572년에 유란시아에 도달하였다. 이 화염은 너무나 강렬하였기 때문에 환한 대낮에도 그 폭발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모든 별들이 고체 상태는 아니지만, 비교적 오래된 것들 대부분은 그러하다. 붉은 빛을 띤, 희미하게 깜박이는 별들 중 일부는 만일 유란시아에서 무게를 잰다면 어떤 별의 1입방 인치가 6,000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는 그것들의 거대한 질량의 중심에서 농도를 획득하였다. 열과 순환 에너지를 잃음으로써 생기는 거대한 압력은 그것들이 이제 전기적 농축의 지위에 근접할 때까지 기본적 물질 단위들의 궤도들을 점점 더 가깝게 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러한 냉각 그리고 응축 과정은 극자적 응축의 임계 폭발 지점까지 계속될 것이다.

거대한 태양들 대부분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작은 별들 대부분은 오래된 것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 충돌하는 작은 별들은 매우 어리고 강한 흰 빛과 함께 타오르게 되는데, 젊을 때의 빛이 최초의 붉은 빛 단계에 있는 일은 한 번도 알려지지 않다. 매우 어린 태양들과 매우 오래된 태양들은 모두 대개 붉은 빛으로 달아오르며 비친다. 노란 색조는 중간 정도로 젊거나 늙은 시대로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빛나는 흰 빛은 강건하고 확장된 성숙된 일생을 의미한다.

청년기 태양들 모두가 정확하게 고동치는 단계를 지나가지는 않은 반면, 적어도 눈에 띄게 그렇지 않은데, 우주 밖을 바라볼 때 너희는 거대한 호흡 용기가 한 주기를 마치기에 2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비교적 젊은 이 별들 대부분을 관측할 수 있다. 너희 자신의 태양은 그것의 젊은 날들의 강력한 상승용기의 점점 감소하는 유산을 여전히

space as one dozen oranges would have if they were circulating about throughout the interior of Urantia, and were the planet a hollow globe.

41:3.3 (458.3) When suns that are too large are thrown off a nebular mother wheel, they soon break up or form double stars. All suns are originally truly gaseous, though they may later transiently exist in a semiliquid state. When your sun attained this quasi-liquid state of supergas pressure, it was not sufficiently large to split equatorially, this being one type of double star formation.

41:3.4 (458.4) When less than one tenth the size of your sun, these fiery spheres rapidly contract, condense, and cool. When upwards of thirty times its size — rather thirty times the gross content of actual material — suns readily split into two separate bodies, either becoming the centers of new systems or else remaining in each other's gravity grasp and revolving about a common center as one type of double star.

41:3.5 (458.5) The most recent of the major cosmic eruptions in Orvonton was the extraordinary double star explosion, the light of which reached Urantia in A.D. 1572. This conflagration was so intense that the explosion was clearly visible in broad daylight.

41:3.6 (458.6) Not all stars are solid, but many of the older ones are. Some of the reddish, faintly glimmering stars have acquired a density at the center of their enormous masses which would be expressed by saying that one cubic inch of such a star, if on Urantia, would weigh six thousand pounds. The enormous pressure, accompanied by loss of heat and circulating energy, has resulted in bringing the orbits of the basic material units closer and closer together until they now closely approach the status of electronic condensation. This process of cooling and contraction may continue to the limiting and critical explosion point of ultimatic condensation.

41:3.7 (459.1) Most of the giant suns are relatively young; most of the dwarf stars are old, but not all. The collisional dwarfs may be very young and may glow with an intense white light, never having known an initial red stage of youthful shining. Both very young and very old suns usually shine with a reddish glow. The yellow tinge indicates moderate youth or approaching old age, but the brilliant white light signifies robust and extended adult life.

41:3.8 (459.2) While all adolescent suns do not pass through a pulsating stage, at least not visibly, when looking out into space you may observe many of these younger stars whose gigantic respiratory heaves require from two to seven days to complete a cycle. Your own sun still carries a diminishing legacy of the mighty upswellings of its

히 갖고 있지만, 그 기간은 이전의 3.5일 파동으로 부터 현재는 11.5년 흑점 주기들로 길어졌다.

별의 변수(變數)들은 수많은 기원들을 갖는다. 어떤 2중성들의 경우에 그 조류들은 두 몸체들이 그들의 궤도들을 돌 때 또한 주기적 광선 파동이 있을 때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리들에 의해 기인된다. 이 중력 변화들은 규칙적이고 되풀이되는 불꽃 현상을 낳는데, 그 표면에서 에너지-물질의 증가에 의한 운석 흡인이 그 태양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밝기로 급격히 떨어지게 될 비교적 갑작스러운 섬광 현상을 낳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때로는 태양이 줄어든 중력 저항과 일치하는 운석 띠를 흡인하게 될 것이며, 때로는 별 모양의 섬광을 만드는 충돌들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현상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내부적 변동에서 기인된다.

변화하는 별들의 한 집단 안에서는 빛 파동 기간이 직접적으로 광도(光度)에 따라 좌우되며, 이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천문학자들은 그러한 태양들을 우주 등대들로 활용하거나 또는 멀리 있는 별 성단들에 대한 더 앞서는 탐구를 위한 정확한 측량 지점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으로 인하여, 백만 광년에 이르기까지의 별 간격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공간 측정의 더 나은 방법들과 개선된 망원경 기법이 언젠가는 오르본톤 초우주의 10개 주요 부분들을 보다 충만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광대한 구역들 중 적어도 8개에 대해서는 거대하고 그런 대로 균형이 잡힌 별 성단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태양 밀도(密度)

너희의 태양의 질량은, 그것이 약 2 곱하기 10의 27승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너희 물리학자들의 측정치보다 약간 더 크다. 그것은 현재 가장 농축된 별과 가장 확산된 별의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물의 밀도보다 약 1.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너희의 태양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며—기체 상태이다—이것은 기체 상태의 물체가 어떻게 이러한 밀도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상태들은 원자-분자 관계들의 문제이지만, 밀도는 공간과 질량의 관계이다. 밀도는 공간 속에서 물체의 양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고 물체 속의 공간 부피와는 반대로 변화하는데, 공간은 물체의 중앙 핵심과 이 중심들을 도는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며 그러한 물질 입자들 속의 공간이다.

식어 가는 별들은 물리적으로 기체상태일 수 있는 동시에 크게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너희는 태양의 초(超)기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들과 다른 비정상적 물질 형태들이 어떻게 고

younger days, but the period has lengthened from the former three and one-half day pulsations to the present eleven and one-half year sunspot cycles.

41:3.9 (459.3) Stellar variables have numerous origins. In some double stars the tides caused by rapidly changing distances as the two bodies swing around their orbits also occasion periodic fluctuations of light. These gravity variations produce regular and recurrent flares, just as the capture of meteors by the accretion of energy-material at the surface would result in a comparatively sudden flash of light which would speedily recede to normal brightness for that sun. Sometimes a sun will capture a stream of meteors in a line of lessened gravity opposition, and occasionally collisions cause stellar flare-ups, but the majority of such phenomena are wholly due to internal fluctuations.

41:3.10 (459.4) In one group of variable stars the period of light fluctuation is directly dependent on luminosity, and knowledge of this fact enables astronomers to utilize such suns as universe lighthouses or accurate measuring points for the further exploration of distant star clusters. By this technique it is possible to measure stellar distances most precisely up to more than one million light-years. Better methods of space measurement and improved telescopic technique will sometime more fully disclose the ten grand division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you will at least recognize eight of these immense sectors as enormous and fairly symmetrical star clusters.

4. SUN DENSITY

41:4.1 (459.5) The mass of your sun is slightly greater than the estimate of your physicists, who have reckoned it as about two octillion (2×10^{27}) tons. It now exists about halfway between the most dense and the most diffuse stars, having about one and one-half times the density of water. But your sun is neither a liquid nor a solid — it is gaseous — and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explaining how gaseous matter can attain this and even much greater densities.

41:4.2 (459.6) Gaseous, liquid, and solid states are matters of atomic-molecular relationships, but density is a relationship of space and mass. Density varies directly with the quantity of mass in space and inversely with the amount of space in mass, the space between the central cores of matter and the particles which whirl around these centers as well as the space within such material particles.

41:4.3 (459.7) Cooling stars can be physically gaseous and tremendously dense at the same tim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solar *supergases*, but these and other unusual forms of

체가 아닌 태양들마저도 쇠와 비슷한 밀도—유란시아의 것과 거의 동일한—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높게 가열된 기체 상태에 있으면서 태양들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농축된 이들 초(超)기체들 속의 원자들은 유난히 크기가 작으며; 그것들은 약간의 전자들을 갖는다. 그러한 태양들은 또한 그들의 극자적 자유 에너지 비축량을 크게 상실하였다.

너희의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으로 탄생된, 너희와 가까이 있는 태양들 중 하나는, 현재 거의 유란시아 크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축되었는데, 너희 태양보다 40,000배에 해당하는 밀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 뜨거운-차가운 기체상태의-고체상태의 무게는 1입방 인치당 1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태양은 희미한 붉은 빛의 백열광, 죽어 가는 빛의 제왕의 노쇠한 희미한 빛과 함께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태양들이 그렇게 밀도가 큰 것은 아니다. 너희들 가까이 있는 것들 중 하나는 해면 대기와 아주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다. 만약에 너희가 이 태양 내부에 있었다면, 너희는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허락한다면, 너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태양들 대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거실 안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오르본톤 안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베룬티아라는 거대한 태양은 유란시아 대기의 밀도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이 너희 대기와 비슷하고 심하게 가열된 성질이 아니었다면, 인간 존재들이 만일 그 속에 또는 그 위에 있게 될 때 숨이 막혔을 것이다.

오르본톤에 있는 다른 거대한 태양들은 현재 3,000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를 갖고 있다. 그 직경은 3억 마일보다 크다—너희 태양과 지구의 현재 궤도를 수용할만한 거대한 공간. 그렇지만, 너희 태양보다 4천만 배가 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질량은 오직 30배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이들 태양들은 하나가 다른 것에 미칠 정도로 확장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matter explain how even nonsolid suns can attain a density equal to iron — about the same as Urantia — and yet be in a highly heated gaseous state and continue to function as suns. The atoms in these dense supergases are exceptionally small; they contain few electrons. Such suns have also largely lost their free ultimatonic stores of energy.

41:4.4 (460.1) One of your near-by suns, which started life with about the same mass as yours, has now contracted almost to the size of Urantia, having become forty thousand times as dense as your sun. The weight of this hot-cold gaseous-solid is about one ton per cubic inch. And still this sun shines with a faint reddish glow, the senile glimmer of a dying monarch of light.

41:4.5 (460.2) Most of the suns, however, are not so dense. One of your nearer neighbors has a density exactly equal to that of your atmosphere at sea level. If you were in the interior of this sun, you would be unable to discern anything. And temperature permitting, you could penetrate the majority of the suns which twinkle in the night sky and notice no more matter than you perceive in the air of your earthly living rooms.

41:4.6 (460.3) The massive sun of Veluntia, one of the largest in Orvonton, has a density only one one-thousandth that of Urantia's atmosphere. Were it in composition similar to your atmosphere and not superheated, it would be such a vacuum that human beings would speedily suffocate if they were in or on it.

41:4.7 (460.4) Another of the Orvonton giants now has a surface temperature a trifle under three thousand degrees. Its diameter is over three hundred million miles — ample room to accommodate your sun and the present orbit of the earth. And yet, for all this enormous size, over forty million times that of your sun, its mass is only about thirty times greater. These enormous suns have an extending fringe that reaches almost from one to the other.

제 5 장. 태양 방사

우주에 있는 태양들이 매우 조밀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탈출하는 빛-에너지들의 안정된 흐름에 의해 증명된다. 밀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빛-에너지 압력이 폭발 점에 이를 때까지 불투명에 의해 빛을 억압시킬 것이다. 태양 안에는 수백만 마일을 떨어져 있는 먼 행성들에게 우주를 통과하여 에너지와 빛을 전달하고 가열시킬 정도의 에너지 흐름을 발사하게 하는 거대한 빛과 기체 압력이 존재한다. 유란시아 밀도에 해당하는 15피트 두께의 표면만 되더라도, 원자 핵 분열에서 기인되는 축적된 에너지의 증가되는 내부 압력이 거대한 외부 폭발로 중력을 압도하게 될 때까지 태양으로부

5. SOLAR RADIATION

41:5.1 (460.5) That the suns of space are not very dense is proved by the steady streams of escaping light-energies. Too great a density would retain light by opacity until the light-energy pressure reached the explosion point. There is a tremendous light or gas pressure within a sun to cause it to shoot forth such a stream of energy as to penetrate space for millions upon millions of miles to energize, light, and heat the distant planets. Fifteen feet of surface of the density of Urantia would effectually prevent the escape of all X rays and light-energies from a sun until the rising

더 모든 X 선들과 빛-에너지들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추진력이 있는 기체들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빛은 불투명한 차단벽에 의해 높은 온도에 갇히게 될 때 큰 폭발력을 갖는다. 빛은 실체이다. 너희의 세계에서 에너지와 힘에게 가치를 부여하듯이, 태양광은 일 파운드당 백만 불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너희 태양의 내부는 거대한 X-선 생성소이다. 태양들은 이러한 강력한 힘을 끊임없이 퍼붓는 내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다.

평균적인 태양의 중심점으로부터 태양 표면 에 이르기까지 X-선으로 자극된 전자가 고유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약 500,00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때부터 그것은 우주 모험을 시작하여, 거주민이 사는 행성을 따뜻하게 하거나, 운석 속에 흡수되거나, 원자의 탄생에 참여하거나, 공간 속의 심하게 대전(帶電)된 흑암 섬에 흡수되거나, 또는 그것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태양의 표면 속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우주 비행을 끝내게 된다.

태양 내부의 X 선들은 심하게 가열되고 진동하는 전자들에게 공간을 통과하여, 일단의 끼어드는 물질의 억류하는 영향들을 지나치고, 다양한 중력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체계들의 먼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운반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로 대전시킨다. 태양의 중력 속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를 갖는 엄청난 에너지는 태양 광선이 상당히 큰 물질 질량을 만나게 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속도로 여행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그 후에는 그것이 다른 에너지들을 배출하면서 급속도로 열로 변환된다.

에너지는, 빛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들로써든지, 우주를 통과해 날아감에 있어서 직진하여 움직인다. 물질 실존의 실제 입자들은 연발하는 형태로 공간을 지나간다. 그것들은 우월한 기체에 의해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순환-중력 현존과 물질적 질량 속에 선재하는 직선-중력 흡인력에 계속 복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바르고 연속적인 선 또는 행렬 속에서 움직인다.

태양 에너지는 마치 파동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공존하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영향의 활동에 기인된다. 조직화된 에너지의 주어진 형태는 파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진행된다. 기체-에너지의 제2 또는 제3 형태의 현존은 파도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관측되는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강력한 바람과 함께 동반되는 앞이 안 보이는 폭풍우 속에서 빗방울이 어떤 때에는 평면 속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파도를 치며 내리는 것과 똑같다. 빗방울들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하는 직선의 형태로 떨어지지만, 바람의 작용이 빗방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기에 평면의 물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internal pressure of accumulating energies resulting from atomic dismemberment overcame gravity with a tremendous outward explosion.

41:5.2 (460.6) Light, in the presence of the propulsive gases, is highly explosive when confined at high temperatures by opaque retaining walls. Light is real. As you value energy and power on your world, sunlight would be economical at a million dollars a pound.

41:5.3 (460.7) The interior of your sun is a vast X-ray generator. The suns are supported from within by the incessant bombardment of these mighty emanations.

41:5.4 (460.8) It requires more than one-half million years for an X-ray-stimulated electron to work its way from the very center of an average sun up to the solar surface, whence it starts out on its space adventure, maybe to warm an inhabited planet, to be captured by a meteor, to participate in the birth of an atom, to be attracted by a highly charged dark island of space, or to find its space flight terminated by a final plunge into the surface of a sun similar to the one of its origin.

41:5.5 (461.1) The X rays of a sun's interior charge the highly heated and agitated electrons with sufficient energy to carry them out through space, past the hosts of detaining influences of intervening matter and, in spite of divergent gravity attractions, on to the distant spheres of the remote systems. The great energy of velocity required to escape the gravity clutch of a sun is sufficient to insure that the sunbeam will travel on with unabated velocity until it encounters considerable masses of matter; whereupon it is quickly transformed into heat with the liberation of other energies.

41:5.6 (461.2) Energy, whether as light or in other forms, in its flight through space moves straight forward. The actual particles of material existence traverse space like a fusillade. They go in a straight and unbroken line or procession except as they are acted on by superior forces, and except as they ever obey the linear-gravity pull inherent in material mass and the circular-gravity presence of the Isle of Paradise.

41:5.7 (461.3) Solar energy may seem to be propelled in waves, but that is due to the action of coexistent and diverse influences. A given form of organized energy does not proceed in waves but in direct lines. The presence of a second or a third form of force-energy may cause the stream under observation to appear to travel in wavy formation, just as, in a blinding rainstorm accompanied by a heavy wind, the water sometimes appears to fall in sheets or to descend in waves. The raindrops are coming down in a direct line of unbroken procession, but the action of the wind is such as to give the visible appearance of sheets of water and

럼 보이게 한다.

너희 지역우주 공간 영역들 속에 현존하는, 특정한 2차 에너지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의 활동은 일정한 길이와 무게를 갖는 극미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치는 현상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양-광선 발산과 같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다. 너희는 네바돈의 공간 영역들 안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공간-기체들 그리고 태양 에너지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너희가 획득하기 전에는 빛의 행태에 대해 더 나은 납득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너희가 현재 갖고 있는 혼동은, 그것이 주(主)우주의 개인적 그리고 비(非)개인적 통제의 상호-연관된 활동들—공동 행위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 활동, 조화-협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미완성된 파악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제 6 장. 칼슘—우주의 미아(迷兒)

분광(分光) 현상을 해독함에 있어서,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공간을 지나가는 그 빛은 조직화된 모든 공간 속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다양한 형태들에 의해 때로 약간씩 변형된다. 너희가 태양의 분광현상에서 알지 못하는 물체가 보이는 것은 산산 조각난 형태로 공간에 두루 떠다니고 있는, 태양 요소 간 전투의 맹렬한 충돌에서 나온 원자 희생자인, 잘 알려진 요소들의 변형 때문이다. 공간은 이러한 떠돌아다니는 낙오자들, 특별히 나트륨과 칼슘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칼슘은 오르본톤에 두루 공간의 물질-침투의 주된 요소이다. 우리의 전체 초우주는 미세하게 분쇄된 암석으로 뿌려져 있다. 암석은 행성들과 공간 구체에게는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건축 물질이다. 거대한 공간 덮개인 조화우주 구름은 대부분이 칼슘의 변형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 원자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수명이 긴 원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태양에서의 이온화현상—분열—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X 선이 강타하고 높은 태양 온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이후라 하더라도 연관하는 정체성을 끈질기게 가진다. 칼슘은 좀 더 통상적인 형태의 모든 물질을 능가하는 개별성과 긴 수명을 소유한다.

너희 물리학자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태양에서 나온 칼슘의 이 손상된 파편들은 가지각색의 거리를 글자 그대로 빛을 타고 가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공간에 두루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 엄청나게 조성되어진다. 나트륨 원자 또한 특정한 변형아래에서는 빛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칼슘의 공로가 훨씬 더 놀랄만한

waves of raindrops.

41:5.8 (461.4) The action of certain secondary and other undiscovered energies present in the space regions of your local universe is such that solar-light emanations appear to execute certain wavy phenomena as well as to be chopped up into infinitesimal portions of definite length and weight. And, practically considered, that is exactly what happens. You can hardly hope to arrive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light until such a time as you acquire a clearer concept of the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various space-forces and solar energies operating in the space regions of Nebadon. Your present confusion is also due to your incomplete grasp of this problem as it involves the interassociated activities of the personal and nonpersonal control of the master universe — the presences, the performances, and the co-ordination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qualified Absolute.

6. CALCIUM — THE WANDERER OF SPACE

41:6.1 (461.5) In deciphering spectral phenomena,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pace is not empty; that light, in traversing space, is sometimes slightly modified by the various forms of energy and matter which circulate in all organized space. Some of the lines indicating unknown matter which appear in the spectra of your sun are due to modifications of well-known elements which are floating throughout space in shattered form, the atomic casualties of the fierce encounters of the solar elemental battles. Space is pervaded by these wandering derelicts, especially sodium and calcium.

41:6.2 (461.6) Calcium is, in fact, the chief element of the matter-permeation of space throughout Orvonton. Our whole superuniverse is sprinkled with minutely pulverized stone. Stone is literally the basic building matter for the planets and spheres of space. The cosmic cloud, the great space blanket, consists for the most part of the modified atoms of calcium. The stone atom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and persistent of the elements. It not only endures solar ionization — splitting — but persists in an associative identity even after it has been battered by the destructive X rays and shattered by the high solar temperatures. Calcium possesses an individuality and a longevity excelling all of the more common forms of matter.

41:6.3 (462.1) As your physicists have suspected, these mutilated remnants of solar calcium literally ride the light beams for varied distances, and thus their widespread dissemination throughout space is tremendously facilitated. The sodium atom, under certain modifications, is also capable of light and energy locomotion. The calcium feat is all the more remarkable since this element has almost

이유는 이 원소가 나트륨보다 거의 두 배의 질량을 갖기 때문이다. 칼슘이 지역 공간-침투를 이룬 것은, 변경된 형태로써 밖으로 뺀 태양광선에 맡 그대로 올라타, 태양광구로부터 벗어나는 사실 때문이다. 태양 원소들 전체 중에서 칼슘은 그것의 상대적 크기—20개의 순환전자들을 포함하는—에도 불구하고 태양 내부로부터 공간의 영역들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성공적인 것이다. 이것이 어찌서 기체상태의 암석 표면인 칼슘 층이 태양에서 6,000마일 두께로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가벼운 19개의 원소들과 보다 무거운 수많은 원소들이 그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칼슘은 태양 온도에서 활동적이고 변화하기 쉽다. 석영 원자는 두 개의 외부 전자 순환회로 속에서 회전이 빠르고 느슨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전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근접되어 있다. 원자 투쟁의 초기에서, 외부 전자를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19번째 전자가 전자 회전의 19번째와 20번째 순환회로 사이를 왔다 갔다 던지고 받는 노련이 넘치는 행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 19번째 전자를 그 자체적 궤도와 그것의 잃어버린 동반자의 궤도 사이를 매초마다 25,000번씩 왔다 갔다 하도록 내던져짐으로써, 불구가 된 석영 원자는 중력을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창발하는 빛과 에너지의 흐름, 태양광선을 성공적으로 해방과 모험에 오르게 한다. 이 칼슘 원자는 앞쪽방향의 추진을 만드는 교대로 발생하는 경련, 매초 25,000번 태양광선을 붙잡았다가 놓아주는 것에 의하여 이 칼슘 원자는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석영이 왜 공간 세계들의 주요 요소인지를 설명해 준다. 칼슘은 최고의 숙련자인 태양-감옥 탈옥수이다.

제주를 부리는 이 칼슘 전자의 민첩성은, 고열-X선 태양 에너지에 의해 보다 높은 궤도의 순환계로 던져질 때, 그것이 1초의 백만분의 1 동안만 궤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의해 표시되지만; 원자핵의 전자-중력이 그것을 원래 궤도 안으로 잡아당기기 전에 그것은 원자 중심을 백만 번 회전할 수 있다.

너희 태양은 많은 양의 칼슘을 내뿜어 왔는데, 태양계의 형성과 관련된 급작스러운 폭발이 있는 동안 거대한 양을 방출하였다. 태양 칼슘의 대부분은 현재 태양의 외부 껍질 속에 있다.

분광(分光) 분석은 오직 태양-표면 조직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태양 분광은 많은 철(鐵) 계통을 나타내지만, 철은 태양에 있어서 주요 원소가 아니다. 이 현상은 6,000도를 약간 밑도는 태양 표면의 현재 온도에서 거의 전적으로 기인된 것이며, 이 온도는 철 분광 결과를 나타내기엔 아주 적합하다.

twice the mass of sodium. Local space-permeation by calcium is due to the fact that it escapes from the solar photosphere, in modified form, by literally riding the outgoing sunbeams. Of all the solar elements, calcium, notwithstanding its comparative bulk — containing as it does twenty revolving electrons — is the most successful in escaping from the solar interior to the realms of space. This explains why there is a calcium layer, a gaseous stone surface, on the sun six thousand miles thick; and this despite the fact that nineteen lighter elements, and numerous heavier ones, are underneath.

41:6.4 (462.2) Calcium is an active and versatile element at solar temperatures. The stone atom has two agile and loosely attached electrons in the two outer electronic circuits, which are very close together. Early in the atomic struggle it loses its outer electron; whereupon it engages in a masterful act of juggling the nineteenth electron back and forth betwee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ircuits of electronic revolution. By tossing this nineteenth electron back and forth between its own orbit and that of its lost companion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times a second, a mutilated stone atom is able partially to defy gravity and thus successfully to ride the emerging streams of light and energy, the sunbeams, to liberty and adventure. This calcium atom moves outward by alternate jerks of forward propulsion, grasping and letting go the sunbeam about twenty-five thousand times each second. And this is why stone is the chief component of the worlds of space. Calcium is the most expert solar-prison escaper.

41:6.5 (462.3) The agility of this acrobatic calcium electron is indicated by the fact that, when tossed by the temperature-X-ray solar forces to the circle of the higher orbit, it only remains in that orbit for about one one-millionth of a second; but before the electric-gravity power of the atomic nucleus pulls it back into its old orbit, it is able to complete one million revolutions about the atomic center.

41:6.6 (462.4) Your sun has parted with an enormous quantity of its calcium, having lost tremendous amounts during the times of its convulsive erup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the solar system. Much of the solar calcium is now in the outer crust of the sun.

41:6.7 (462.5)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spectral analyses show only sun-surface compositions. For example: Solar spectra exhibit many iron lines, but iron is not the chief element in the sun. This phenomenon is almost wholly due to the present temperature of the sun's surface, a little less than 6,000 degrees, this temperature being very favorable to the registry of the iron spectrum.

제 7 장. 태양 에너지의 근원

심지어는 너희 태양도 포함하여, 많은 태양들의 내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높다. 태양의 내부에는 실천적으로 원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그러한 높은 온도에 토착적인 강한 X-선 충격에 의해 다소 분쇄되어 있다. 태양의 비교적 바깥층들에서 무슨 물질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그것들은 파괴적인 X-선들의 분열 활동에 의해 매우 비슷하게 된다. X-선은 원자 실존을 평등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이다.

너희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르지만, 그것은 내부로 들어갈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중앙 지점에서는 약 3,500만 도에 이르는 믿을 수 없는 고온을 갖는다. (이 모든 온도는 너희가 재는 화씨온도에 기준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거대한 에너지 소모를 암시하는 것이며, 태양 에너지의 근원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전자들의 절멸(絶滅).
2. 원소들의 변형, 그리하여 자유롭게 된 방사성을 갖는 에너지 집단을 포함하여.
3. 특정한 우주적 공간-에너지들의 축적과 전송.
4. 타오르는 태양들 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우주 물질 그리고 유성들.
5. 태양 수축; 우주 물질에 의해 공급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와 열을 내는 태양의 냉각과 그에 따른 수축.
6. 특정한 순회하는 힘을 발광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온의 중력 활동.
7. 태양계 밖에서 기원된 다른 에너지들을 포함하여, 태양을 떠난 이후에 다시 그 속으로 끌어들여지는 다시 사로잡힌 빛과 다른 물질.

태양들을 감싸고, 열 감소를 안정시키든지 아니면 열 손실의 위험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도록 활동하는 뜨거운 (때로는 수백만 도에 이르는) 기체로 된 규제하는 막이 존재한다. 태양이 활동을 하는 동안 3,500만 도에 이르는 그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의 점진적인 하강에 거의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너희는 전자적 비등점으로써 특정한 중력 압력과 관계적-연합하여 3,500만 도를 상상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한 압력 하에서는 그리고

7. SOURCES OF SOLAR ENERGY

41:7.1 (463.1) The internal temperature of many of the suns, even your own, is much higher than is commonly believed. In the interior of a sun practically no whole atoms exist; they are all more or less shattered by the intensive X-ray bombardment which is indigenous to such high temperatures. Regardless of what material elements may appear in the outer layers of a sun, those in the interior are rendered very similar by the dissociative action of the disruptive X rays. X ray is the great leveler of atomic existence.

41:7.2 (463.2) The surface temperature of your sun is almost 6,000 degrees, but it rapidly increases as the interior is penetrated until it attains the unbelievable height of about 35,000,000 degrees in the central regions. (All of these temperatures refer to your Fahrenheit scale.)

41:7.3 (463.3) All of these phenomena are indicative of enormous energy expenditure, and the sources of solar energy, named in the order of their importance, are:

41:7.4 (463.4) 1. Annihilation of atoms and, eventually, of electrons.

41:7.5 (463.5) 2. Transmutation of elements, including the radioactive group of energies thus liberated.

41:7.6 (463.6) 3. The accumulation and transmission of certain universal space-energies.

41:7.7 (463.7) 4. Space matter and meteors which are incessantly diving into the blazing suns.

41:7.8 (463.8) 5. Solar contraction; the cooling and consequent contraction of a sun yields energy and heat sometimes greater than that supplied by space matter.

41:7.9 (463.9) 6. Gravity action at high temperatures transforms certain circuitized power into radiative energies.

41:7.10 (463.10) 7. Recaptive light and other matter which are drawn back into the sun after having left it, together with other energies having extrasolar origin.

41:7.11 (463.11) There exists a regulating blanket of hot gases (sometimes millions of degrees in temperature) which envelops the suns, and which acts to stabilize heat loss and otherwise prevent hazardous fluctuations of heat dissipation. During the active life of a sun the internal temperature of 35,000,000 degrees remains about the same quite regardless of the progressive fall of the external temperature.

41:7.12 (463.12) You might try to visualize 35,000,000 degrees of heat, in association with certain gravity pressures, as the electronic boiling point. Under

그러한 온도에서는 모든 원자들이 퇴화하고 그것들의 전자 성분들 그리고 다른 원래 성분들로 분열된다; 전자 그리고 또 다른 극자의 관계적-연합조차도 분열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은 극자를 퇴화시킬 수는 없다.

이 태양 온도가 극자들과 전자들을 크게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후자의 그러한 것들이 이들 조건하에서 그들의 실존이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계속되도록 한다. 너희는 보통의 물 한 방울이 10억조(億兆)를 넘는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멈추어 생각할 때, 극자 활동과 전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100마력으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이다. 태양 체계에 의해 현재 매초마다 뿜어져 나오는 전체 열은 단 1초 만에 유란시아의 바닷물 전체를 모두 끓는 온도에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우주 에너지의 주요 흐름들 중에서 직접적인 계통들 속에 기능하는 태양들만이 언제까지나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한 태양 불꽃은 무기한으로 타오르는데, 공간-기세와 유사 순환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의 물질적 손실을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충전하는 이 주요 계통들로부터 멀리 옮겨진 별들은 에너지 고갈-점차적으로 식어지고 결국에는 타버리는—을 겪게 되어 있다.

그러한 죽은 또는 죽어 가는 태양들은 충돌 효과에 의해 다시 젊어지거나 우주의 빛을 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섬들에 의해 또는 보다 작은 근처의 태양들 또는 체계들의 중력-강탈을 통하여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죽은 태양들 대부분은 이러한 또는 다른 진화적 방법들에 의해 원기를 회복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 중에 그렇게 결국에는 재충전되지 못한 것들은 중력 응축이 에너지 압력의 극자적 응축의 결정적 차원에 도달할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분열되게 되어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태양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희귀한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데, 보다 더 순조로운 상태에 있는 다른 태양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감탄할 정도로 적합하다.

제 8 장. 태양 에너지 반응

공간-에너지 경로들 속에서 돌고 있는 그 태양들에게 있어서,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복합적 핵-반응 고리들에 의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소-탄소-헬륨 반응이다. 이 변형 작용에 있어서, 탄소는 하나의 에너지 촉매로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에 의해 실제로 그것이 결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의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수소가 탄소 원자핵들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탄소는 그러한 양성자들을 네 개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such pressure and at such temperature all atoms are degraded and broken up into their electronic and other ancestral components; even the electrons and other associations of ultimatons may be broken up, but the suns are not able to degrade the ultimatons.

41:7.13 (463.13) These solar temperatures operate to enormously speed up the ultimatons and the electrons, at least such of the latter as continue to maintain their existence under these conditions. You will realize what high temperature means by way of the acceleration of ultimatonic and electronic activities when you pause to consider that one drop of ordinary water contains over one billion trillions of atoms. This is the energy of more than one hundred horsepower exerted continuously for two years. The total heat now given out by the solar system sun each second is sufficient to boil all the water in all the oceans on Urantia in just one second of time.

41:7.14 (464.1) Only those suns which function in the direct channels of the main streams of universe energy can shine on forever. Such solar furnaces blaze on indefinitely, being able to replenish their material losses by the intake of space-force and analogous circulating energy. But stars far removed from these chief channels of recharging are destined to undergo energy depletion — gradually cool off and eventually burn out.

41:7.15 (464.2) Such dead or dying suns can be rejuvenated by collisional impact or can be recharged by certain nonluminous energy islands of space or through gravity-robbery of near-by smaller suns or systems. The majority of dead suns will experience revivification by these or other evolutionary techniques. Those which are not thus eventually recharged are destined to undergo disruption by mass explosion when the gravity condensation attains the critical level of ultimatonic condensation of energy pressure. Such disappearing suns thus become energy of the rarest form, admirably adapted to energize other more favorably situated suns.

8. SOLAR-ENERGY REACTIONS

41:8.1 (464.3) In those suns which are encircuited in the space-energy channels, solar energy is liberated by various complex nuclear-reaction chains, the most common of which is the hydrogen-carbon-helium reaction. In this metamorphosis, carbon acts as an energy catalyst since it is in no way actually changed by this process of converting hydrogen into helium. Under certain conditions of high temperature the hydrogen penetrates the carbon nuclei. Since the carbon cannot hold more than four such protons, when this saturation state is attained, it begins to

만큼 빠르게 양성자들을 방출한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소 입자들이 헬륨 원자로 나오게 된다.

수소 함유량의 저하가 태양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타버릴 운명에 있는 태양들 안에서는, 그 밝기가 수소 연소 지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광도(光度)는 중력 응축의 합성 과정에 의해 유지된다. 결국에는 그러한 별은 소위 하얀 난쟁이 별이라고 불리는 매우 응축된 구체가 될 것이다.

큰 태양들—작은 순환계의 성운—의 경우에는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 응축이 일어날 때, 만일 그러한 몸체가 외부 기체 영역들을 지탱할 정도로 내부 압력을 유지시킬 만큼 충분히 불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갑작스러운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 전기적 잠재가 결여된 엄청난 양의 미세 입자들이 중력-전기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며, 그러한 입자들은 태양 내부로부터 즉시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수일 내에 거대한 태양이 붕괴되게 된다. 약 50여 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의 거대한 새로운 별이 붕괴되게 된 것은 이러한 “탈출하는 입자들”의 이주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별의 붕괴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40분 만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거대한 압출(壓出)은 식어가는 남은 태양이 성운 기체의 광대한 구름처럼 존재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게자리 성운과 같은 여러 형태의 불규칙적인 성운들이 기원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약 900년 전에 기원되었으며, 불규칙적인 이 성운 덩어리의 중심 근처에 홀로 있는 별로서 어머니 구체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제 9 장. 태양 안정성

비교적 큰 태양들은 강력한 X선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빛이 탈출하는 자신의 전자들에 대해 그러한 중력 통제를 유지한다. 조력자인 이 광선들은 모든 우주를 관통하며 에너지의 기본적이고 극자적인 관계적-연합에 관여한다. 초기 시대의 태양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손실은, 최고 온도—3,500만 도가 넘는—에 도달한 다음에는 극자 누출만큼 빛 탈출에 기인되지 않는다. 이 극자 에너지들은 우주 속으로 탈출하여 청년기 태양 시절 동안, 진실 그대로의 태양 광풍으로서 전기적 관계적-연합과 에너지의 물질화의 모험에 참여한다.

원자들과 전자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 극자들은 지역 중력, 물질 인력(引力)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절대적 또는 파라다이스 중력, 우주들의 우주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순환계의 경향인 진동에 충분히 지배를 받는다. 극자 에너지는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 있는 물질 덩어리들의 1차적인 또는 직접적인 중력 끌어당김의 영향

emit protons as fast as new ones arrive. In this reaction the ingoing hydrogen particles come forth as a helium atom.

41:8.2 (464.4) Reduction of hydrogen content increases the luminosity of a sun. In the suns destined to burn out, the height of luminosity is attained at the point of hydrogen exhaustion. Subsequent to this point, brilliance is maintained by the resultant process of gravity contraction. Eventually, such a star will become a so-called white dwarf, a highly condensed sphere.

41:8.3 (464.5) In large suns — small circular nebulae — when hydrogen is exhausted and gravity contraction ensues, if such a body is not sufficiently opaque to retain the internal pressure of support for the outer gas regions, then a sudden collapse occurs. The gravity-electric changes give origin to vast quantities of tiny particles devoid of electric potential, and such particles readily escape from the solar interior, thus bringing about the collapse of a gigantic sun within a few days. It was such an emigration of these “runaway particles” that occasioned the collapse of the giant nova of the Andromeda nebula about fifty years ago. This vast stellar body collapsed in forty minutes of Urantia time.

41:8.4 (464.6) As a rule, the vast extrusion of matter continues to exist about the residual cooling sun as extensive clouds of nebular gases. And all this explains the origin of many types of irregular nebulae, such as the Crab nebula, which had its origin about nine hundred years ago, and which still exhibits the mother sphere as a lone star near the center of this irregular nebular mass.

9. SUN STABILITY

41:9.1 (465.1) The larger suns maintain such a gravity control over their electrons that light escapes only with the aid of the powerful X rays. These helper rays penetrate all space and are concerned in the maintenance of the basic ultimatonic associations of energy. The great energy losses in the early days of a sun, subsequent to its attainment of maximum temperature — upwards of 35,000,000 degrees — are not so much due to light escape as to ultimatonic leakage. These ultimatonic energies escape out into space, to engage in the adventure of electronic association and energy materialization, as a veritable energy blast during adolescent solar times.

41:9.2 (465.2) Atoms and electrons are subject to gravity. The ultimatons are *not* subject to local gravity, the interplay of material attraction, but they are fully obedient to absolute or Paradise gravity, to the trend, the swing, of the universal and eternal circl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Ultimatonic energy does not obey the linear or direct gravity

을 받지 않지만, 멀리서 일어나는 창조의 거대한 타원 순환회로에 그대로 맞추어서 계속 돈다.

너희 자신의 태양 중심은 매년 거의 1,000억 톤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물질을 방출하는 반면, 거대한 태양들은 그들의 초기 성장 기간, 처음 10억 년 동안 경이적인 비율로 물질을 방출한다. 태양의 생명은 내부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안정이 되며, 원자 구성요소 에너지들이 방출되기 시작한다. 비교적 큰 태양들이 발작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임계점에서 이다.

태양 안정성은 중력-열 대립—상상할 수 없는 온도에 의해 평형이 이룩된 거대한 압력들—사이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된다. 태양들의 내부 기체 탄력성이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된 겹으로 된 층들을 지탱하며, 중력과 열이 평형을 이룰 때, 외부 물질들의 무게가 아래에 있는 내부 기체들의 온도 압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많은 젊은 별들 가운데에는 계속된 중력 응축이 계속-증가하는 내부 온도를 산출하며, 초월적 기체 폭풍의 내부 X-선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서, 원심력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하여, 태양은 그 외부 층들을 공중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중력과 열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너희들 자신의 태양은 그 팽창과 응축 순환, 비교적 젊은 별들 대부분의 거대한 진동을 가져오는 소동(騷動)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평형을 오래 전부터 이루어 왔다. 너희의 태양의 나이는 현재 60억 년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가장 경제적인 기간을 통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250억 년 이상 동안 현재의 효율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초기 기능과 안정된 기능의 병합 기간이 계속되는 만큼 쇠퇴하는, 부분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 10 장. 거주 세계들의 기원

최대 진동 상태에 있거나 그에 접근된 가변적인 별들 중 어떤 것들은 중속되는 체계들을 기원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결국에는 너희들 자신의 태양과 그것에 소속된 회전하는 행성들과 매우 흡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태양은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가까이 회전하며 들어올 때와 같은 크게 진동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태양의 외부 표면이 진실 그대로의 물질 흐름—연속적인 판(板)들—을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근접된 동격(同格)이 이루어질 때, 태양 응집력의 한계에 도달되고, 태양 체계의 조상인 물질의 거대한 정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점점 더 맹렬하게 되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끌어당기는 몸체가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어떤 경우

attraction of near-by or remote material masses, but it does ever swing true to the circuit of the great ellipse of the far-flung creation.

41:9.3 (465.3) Your own solar center radiates almost one hundred billion tons of actual matter annually, while the giant suns lose matter at a prodigious rate during their earlier growth, the first billion years. A sun's life becomes stable after the maximum of internal temperature is reached, and the subatomic energies begin to be released. And it is just at this critical point that the larger suns are given to convulsive pulsations.

41:9.4 (465.4) Sun stability is wholly dependent on the equilibrium between gravity-heat contention — tremendous pressures counterbalanced by unimagined temperatures. The interior gas elasticity of the suns upholds the overlying layers of varied materials, and when gravity and heat are in equilibrium, the weight of the outer materials exactly equals the temperature pressure of the underlying and interior gases. In many of the younger stars continued gravity condensation produces ever-heightening internal temperatures, and as internal heat increases, the interior X-ray pressure of supergas winds becomes so great that, in connection with the centrifugal motion, a sun begins to throw its exterior layers off into space, thus redressing the imbalance between gravity and heat.

41:9.5 (465.5) Your own sun has long since attained relative equilibrium between its expansion and contraction cycles, those disturbances which produce the gigantic pulsations of many of the younger stars. Your sun is now passing out of its six billionth year. At the present time it is functioning through the period of greatest economy. It will shine on as of present efficiency for more than twenty-five billion years. It will probably experience a partially efficient period of decline as long as the combined periods of its youth and stabilized function.

10. ORIGIN OF INHABITED WORLDS

41:10.1 (465.6) Some of the variable stars, in or near the state of maximum pulsation, are in process of giving origin to subsidiary systems, many of which will eventually be much like your own sun and its revolving planets. Your sun was in just such a state of mighty pulsation when the massive Angona system swung into near approach, and the outer surface of the sun began to erupt veritable streams — continuous sheets — of matter. This kept up with ever-increasing violence until nearest apposition, when the limits of solar cohesion were reached and a vast pinnacle of matter, the ancestor of the solar system, was disgorged.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closest approach of the attracting body sometimes draws

에는 심지어 어떤 태양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체 행성들이 빠져 나온다. 어떤 독특한 구름처럼 묶인 세계들로부터 발생된 이 주요 압출 현상은 목성 그리고 토성과 비슷한 구체를 형성한다.

아무튼 태양 체계들의 대부분은 너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기원되었으며, 이것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중력의 기법에 의해 산출된 그것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가 건설되는 기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력은 항상 태양 체계 형태의 창조를 이룩 한다; 그것은 행성들과 위성들과 하위위성들 그리고 유성(遊星)들을 갖는 중앙에 있는 하나의 태양 또는 흑암 섬이다.

개별 세계들의 물리적 양상은 기원된 방법, 천문학적 상황,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나이, 크기, 회전 비율, 우주를 날아가는 속도 역시 결정 요소들이 된다. 기체-응축으로 되는 세계는 물론 고체-증가로 되는 세계 역시 산 모양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너무 작지 않은 초기 삶 동안 물과 공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녹아서 분열된 세계와 충돌하여 생긴 세계들의 경우 넓은 산맥이 없는 때도 있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세계들의 초기 시대 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거대한 물리적 격변이 그것들 모두의 특징이다; 특별히 이것은 기체-응축 구체들에게 적용되는데, 세계들은 특정한 개별적 태양들의 초기 응축과 수축에서 벗어날 때 남겨진 거대한 성운 고리에서 발생된다. 유란시아처럼 이원적(二元的)인 기원을 갖는 행성들은 비교적 적은 격변과 폭풍우의 어린 시절을 통과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의 세계는 화산과 지진과 홍수 그리고 엄청난 폭풍우를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변혁의 초기 위상을 체험하였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의 외곽에서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너희의 태양 체계는 하나의 예외 현상으로 예루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사타니아 자체는 놀라시아택의 가장 외곽에 있는 체계에 근접해 있으며, 이 별자리는 현재 네바돈의 외부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미가엘의 증여로 인해 너희 행성이 큰 우주적 관심과 영예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 너희는 정말로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의 하나였다. 종종 제일 나중이 첫째가 된다, 한편으로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네바돈 힘 중심들의 우두머리와 협력하는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off whole planets, even a quarter or third of a sun. These major extrusions form certain peculiar cloud-bound types of worlds, spheres much like Jupiter and Saturn.

41:10.2 (466.1) The majority of solar systems, however, had an origin entirely different from yours, and this is true even of those which were produced by gravity-tidal technique. But no matter what technique of world building obtains, gravity always produces the solar system type of creation; that is, a central sun or dark island with planets, satellites, subsatellites, and meteors.

41:10.3 (466.2) The physical aspects of the individual worlds are largely determined by mode of origin, astronomical situ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 Age, size, rate of revolution, and velocity through space are also determining factors. Both the gas-contraction and the solid-accretion worlds are characterized by mountains and, during their earlier life, when not too small, by water and air. The molten-split and collisional worlds are sometimes without extensive mountain ranges.

41:10.4 (466.3) During the earlier ages of all these new worlds, earthquakes are frequent, and they are all characterized by great physical disturbances; especially is this true of the gas-contraction spheres, the worlds born of the immense nebular rings which are left behind in the wake of the early condensation and contraction of certain individual suns. Planets having a dual origin like Urantia pass through a less violent and stormy youthful career. Even so, your world experienced an early phase of mighty upheavals, characterized by volcanoes, earthquakes, floods, and terrific storms.

41:10.5 (466.4) Urantia is comparatively isolated on the outskirts of Satania, your solar system, with one exception, being the farthest removed from Jerusem, while Satania itself is next to the outermost system of Norlatiadek, and this constellation is now traversing the outer fringe of Nebadon. You were truly among the least of all creation until Michael's bestowal elevated your planet to a position of honor and great universe interest. Sometimes the last is first, while truly the least becomes greatest.

41:10.6 (466.5) [Presented by an Archangel in collaboration with the Chief of Nebadon Power Centers.]

제 42 편 에너지—마음과 물질

⇨ 041

유랜시아 책

043 ⇨

부 II. 지역우주

제 42 편 에너지—마음과 물질

색션

소개

제 1 장. 파라다이스 기체와 에너지

제 2 장. 우주의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에너지들)

제 3 장. 물질의 분류

제 4 장. 에너지와 물질의 변형

제 5 장. 파동-에너지 현시활동

제 6 장. 극자, 전자, 그리고 원자

제 7 장. 원자 물질

제 8 장. 원자의 응집

제 9 장. 자연 철학

제 10 장. 우주적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마음 체계)

제 11 장. 우주 기능구조

제 12 장. 원형들과 형태—마음 지배

소개

에너지가 모든 실존의 기초라는 면에서 볼 때 우주의 기반은 물질로 되어있으며, 순수한 에너지는 우주 아버지에 의해 통제된다. 기체. 에너지는 우주 절대자의 실존과 현존을 명시하고 실증하는 영속하는 기념비로 서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파라다이스 현존들로부터 나오는 광대한 흐름의 이 에너지는 쇠퇴한 적이 결코 없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 무한의 지탱에서 결코 깨진 적이 전혀 없었다.

우주 에너지의 조종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의지와 모든-지혜의 명령에 항상 따르고 있다. 현시되는 힘과 순환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 개인적 통제는 영원한 아들의 조화-협동하는 활동과 결정에 의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 행위자에 의해 실행되는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된 목적에 의해서 변경된다. 이들 신성한 존재들은 개인적으로 그리

PAPER 42

ENERGY — MIND AND MATTER

SECTIONS

Introduction

1. Paradise Forces and Energies

2.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Physical Energies)

3. Classification of Matter

4. Energy and Matter Transmutations

5. Wave-Energy Manifestations

6. Ultimatons, Electrons, and Atoms

7. Atomic Matter

8. Atomic Cohesion

9. Natural Philosophy

10.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Material Mind Systems)

11. Universe Mechanisms

12. Pattern and Form — Mind Dominance

INTRODUCTION

42:0.1 (467.1)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is material in the sense that energy is the basis of all existence, and pure energy is controlled by the Universal Father. Force, energy, is the one thing which stands as an everlasting monument demonstrating and proving the existence and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is vast stream of energy proceeding from the Paradise Presences has never lapsed, never failed; there has never been a break in the infinite upholding.

42:0.2 (467.2) The manipulation of universe energy is ever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will and the all-wise mandates of the Universal Father. This personal control of manifested power and circulating energy is modified by the co-ordinate acts and decisions of the Eternal Son, as well as by the united purposes of the Son and the Father

고 개별적으로 활동 한다; 또한 그들은 우주들의 우주에서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을 다양하게 각각 표현하는 거의 무제한적 숫자의 종속들의 개인과 힘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렇게 신성한 힘의 기능적이고도 일시적인 변형이나 변형들이, 모든 기세-에너지가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계시는 개인적 하느님의 궁극적 통제 아래에 있다는 선언적 진리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 1 장. 파라다이스 기세와 에너지

우주의 기반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본질은 영이다. 그리고 영들의 아버지는 또한 우주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기원적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또한 기원적 원형틀,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근원이다.

물질—에너지—는, 우주 아버지 안에서 선천적인 것처럼, 하나의 우주 현상이며 그러면서 동일한 조화우주 실체의 다양한 현시활동이다. “그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물질은 선천적 에너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자아-억제된 힘들을 현시하기 위하여 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물리적 현상 속에 고려되는 에너지들 속에 포함된 중력 계통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유래되고 파라다이스에 의존한다. 에너지로부터 나온 최초의 측정 가능한 물질, 극자는 파라다이스를 자신의 핵으로 삼는다.

물질 안에는 타고난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 제시되어 있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형태가 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발견될 때, 물리학자들은 거의 최소한 물질의 신비는 해결하였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창조자에게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신성한 기법을 한 위상 더 정복하게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한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조화우주 기법과 우주 아버지의 동기부여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자연법칙의 작용 또는 물질의 실존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진보와 발견들이 있는 다음, 유란시아가 현재의 지식과 비교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향상한 후에, 물질의 전기적 단위들의 에너지 공전의 통제를 그들의 물리적 현시활동들을 변경시키는 정도까지 확대하도록 너희가 획득한다 해도,—실사 모든 가능한 진보가 있다하여도, 과학자들은 물체의 원자 하나를 창조하거나 또는 한 섬광의 에너지를 기원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물질에 더 하거나 할 힘은 언제까지나 없을 것이다.

에너지의 창조와 생명의 증여는 우주 아버지와 그의 연관 동료 창조자 개인성들의 특권이다. 에너지와 생명의 강은 신(神)들로부터 계속하여 솟아나오며, 파라다이스 기세의 우주적이고 연합

executed by the Conjoint Actor. These divine beings act personally and as individuals; they also function in the persons and powers of an almost unlimited number of subordinates, each variously expressive of the eternal and divine purpos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these functional and provisional modifications or transmutations of divine power in no way lessen the truth of the statement that all force-energy is under the ultimate control of a personal God resident at the center of all things.

1. PARADISE FORCES AND ENERGIES

42:1.1 (467.3)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is material, but the essence of life is spirit. The Father of spirits is also the ancestor of universes;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is also the eternity-source of the original pattern, the Isle of Paradise.

42:1.2 (467.4) Matter — energy — for they are but diverse manifestations of the same cosmic reality, as a universe phenomenon is inherent in the Universal Father. “In him all things consist.” Matter may appear to manifest inherent energy and to exhibit self-contained powers, but the lines of gravity involved in the energies concerned in all these physical phenomena are derived from, and are dependent on, Paradise. The ultimatons, the first measurable form of energy, has Paradise as its nucleus.

42:1.3 (467.5) There is innate in matter and present in universal space a form of energy not known on Urantia. When this discovery is finally made, then will physicists feel that they have solved, almost at least, the mystery of matter. And so will they have approached one step nearer the Creator; so will they have mastered one more phase of the divine technique; but in no sense will they have found God, neither will they have established the existence of matter or the operation of natural laws apart from the cosmic technique of Paradise and the motivating purpose of the Universal Father.

42:1.4 (468.1) Subsequent to even still greater progress and further discoveries, after Urantia has advanced immeasurably in comparison with present knowledge, though you should gain control of the energy revolutions of the electrical units of matter to the extent of modifying their physical manifestations — even after all such possible progress, forever will scientists be powerless to create one atom of matter or to originate one flash of energy or ever to add to matter that which we call life.

42:1.5 (468.2) The creation of energy and the bestowal of life are the prerogativ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associate Creator personalities. The river of energy and life is a

된 물줄기는 모든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모든 창조에 가득 퍼진다. 기체 조직자들이 공간-기체에서의 그러한 변화들을 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수정들을 실시하여 에너지로 결국 생겨나게 한다; 힘 지도자들이 에너지를 물질로 변질시킨다; 이렇게 하여 물질세계들이 탄생된다. 생명운반자들은 죽어있는 물질에서 우리가 생명, 곧 물질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개시한다. 모론티아 힘 감독자들은 마찬가지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과도기 영역에서 두루 수행한다. 더욱 높은 영 창조자들은 에너지의 신성한 형태들에서 비슷한 과정을 착수하고, 그리고 지적 생명의 더욱 높은 영 형태들이 뒤따라 생긴다.

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와서, 신성한 계층에 맞추어 빔어진다. 에너지—순수 에너지—는 신성한 조직체의 본성을 이룬다; 세 하느님들이 우주들의 우주의 본부에서 기능하듯이, 하나 속에 포용된 세 하느님의 모습에 맞추어 빔어진다. 그리고 모든 기체는 파라다이스로 순환되는데, 파라다이스 현존들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 없는 원인—우주 아버지의 본질적인 현시활동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는,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실존하는 신(神)으로부터 나온 기체는 그 자체로서 언제나 실존한다. 기체-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 무한자의 이러한 현시활동들은 무제한적 변형과 끝없는 변환 그리고 영원한 변질을 겪어야만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의미나 정도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까지 이르더라도, 그들은 소멸되거나 또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에너지가 무한자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무한하게 현시되지는 않는다; 현재 이해되는 주(主)우주에 바깥쪽 한계가 있다.

에너지는 영원하지만 무한하지는 않는다; 모두-포용하는 무한성의 장악에 언제나 응답한다. 기체와 에너지는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파라다이스로부터 퍼져나가지만, 정해진 순환회로를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긴 세월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파라다이스 신(神)으로부터 기원된 것은 파라다이스를 행선지로 하거나 신(神) 운명을 가질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우주들의 우주가 원형을 이루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계층적으로 멀리-퍼져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해 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증거가 곧 나타날 것이다. 모든 법칙, 조직체, 관리-행정, 그리고 우주 탐험가들의 증언—이 모든 것이 무한한 하느님의 실존에게로 집중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하나의 유한한 우주로서, 끝없는 실존의 순환성이고, 거의 한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성과 대비할 때 유한하다.

continuous outpouring from the Deities, the universal and united stream of Paradise force going forth to all space. This divine energy pervades all creation. The force organizers initiate those changes and institute those modifications of space-force which eventuate in energy; the power directors transmute energy into matter; thus the material worlds are born. The Life Carriers initiate those processes in dead matter which we call life, material life.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likewise perform throughout the transition realm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The higher spirit Creators inaugurate similar processes in divine forms of energy, and there ensue the higher spirit forms of intelligent life.

42:1.6 (468.3) Energy proceeds from Paradise, fashioned after the divine order. Energy — pure energy — partakes of the nature of the divine organization; it is fashioned after the similitude of the three Gods embraced in one, as they functi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ll force is circuited in Paradise, comes from the Paradise Presences and returns thereto, and is in essence a manifestation of the uncaused Cause — the Universal Father; and without the Father would not anything exist that does exist.

42:1.7 (468.4) Force derived from self-existent Deity is in itself ever existent. Force-energy is imperishable, indestructible; these manifestations of the Infinite may be subject to unlimited transmutation, endless transformation, and eternal metamorphosis; but in no sense or degree, not even to the slightest imaginable extent, could they or ever shall they suffer extinction. But energy, though springing from the Infinite, is not infinitely manifest; there are outer limits to the presently conceived master universe.

42:1.8 (468.5) Energy is eternal but not infinite; it ever responds to the all-embracing grasp of Infinity. Forever force and energy go on; having gone out from Paradise, they must return thereto, even if age upon age be required for the completion of the ordained circuit. That which is of Paradise Deity origin can have only a Paradise destination or a Deity destiny.

42:1.9 (468.6) And all this confirms our belief in a circular, somewhat limited, but orderly and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If this were not true, then evidence of energy depletion at some point would sooner or later appear. All laws,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the testimony of universe explorers — everything points to the existence of an infinite God but, as yet, a finite universe, a circularity of endless existence, well-nigh limitless but, nevertheless, finite in contrast with infinity.

제 2 장. 우주의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2.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에너지들)

영어 단어에서 기세와 에너지의 다양한—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차원들을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낼 만한 적당한 말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 얘기들은 기세, 에너지, 힘에 대하여 너희가 받아들이는 정의(定意)를 도무지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복합적 의미에서 이들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예를 들자면, 에너지라는 말은 현상적 움직임, 활동, 그리고 잠재의 모든 위상과 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한편, 기세는 중력이전, 힘은 중력이후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에 적용된다.

아무튼, 나는 조화우주 기세, 창발에너지, 그리고 우주 힘—물리적 에너지—으로 나뉘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채택하도록 권함으로써 개념적인 혼란을 줄여보려고 노력해 본다:

1. 공간 잠재력.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의심할 수 없는 자유 공간 현존이다. 이 개념의 확장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능적 전체성(全體性)안에 선천적인 우주 기세-공간 잠재를 암시하고, 한편으로 이 개념이 내포하는 것은 결코-시작됨이 없고, 결코-끝남이 없는, 결코-움직임이 없고, 결코-변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영원의 방법으로 방사된, 조화우주 실체—우주들—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파라다이스의 아래쪽의 토착적인 현상들은 아마 절대 기세 현존 그리고 행위에 대한 세 지대들을 포용하며: 아마도 분별불가 절대자의 지레받침 지대, 파라다이스 섬 자체의 지대 그리고 어떤 미(未)-정체성확인 평등화와 평형화 대리자 또는 기능들의 조종하는 지대를 포용할 것이다. 이들 세 동심원 지대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파라다이스 주기의 중심체들이다.

공간 잠재력은 실체-이전(以前)이다; 그것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이고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적 장악에만 응답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1차 주(主)기세조직자들의 현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버사에서는 공간 잠재력이 절대소(絕對素)로 불린다.

2. 원초(원초)기세. 이것은 공간 잠재력에서의 최초 기본 변화를 대표하며 분별불가 절대자의 하부 파라다이스 기능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하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공간 현존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방법에 의해 변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한 모든 관계들과 상관없이, 공간 잠재력의 널리 인지된 원초(원초)기세로의 변형은 살아있는 파라다이스 기세조직자들의 긴장-현존이 시원적으로 차별

SYSTEMS

(PHYSICAL ENERGIES)

42:2.1 (469.1) It is indeed difficult to find suitable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whereby to designate and wherewith to describe the various levels of force and energy —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These narratives cannot altogether follow your accepted definitions of force, energy, and power. There is such paucity of language that we must use these terms in multiple meanings. In this paper, for example, the word *energy* is used to denote all phases and forms of phenomenal motion, action, and potential, while *force* is applied to the pregravity, and *power* to the postgravity, stages of energy.

42:2.2 (469.2) I will, however, endeavor to lessen conceptual confusion by suggesting the advisability of adopting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for cosmic force, emergent energy, and universe power — physical energy:

42:2.3 (469.3) 1. *Space potency*. This is the unquestioned fre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extension of this concept connotes the universe force-space potential inherent in the functional totalit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hile the intension of this concept implies the totality of cosmic reality — universes — which emanated eternitywise from the never-beginning, never-ending, never-moving, never-changing Isle of Paradise.

42:2.4 (469.4) The phenomena indigenous to the nether side of Paradise probably embrace three zones of absolute force presence and performance: the fulcral zon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zone of the Isle of Paradise itself, and the intervening zone of certain unidentified equalizing and compensating agencies or functions. These triconcentric zones are the centrum of the Paradise cycle of cosmic reality.

42:2.5 (469.5) Space potency is a prereality; it is the domai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is responsive only to the personal grasp of the Universal Father, notwithstanding that it is seemingly modifiable by the presence of the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42:2.6 (469.6) On Uversa, space potency is spoken of as ABSOLUTA.

42:2.7 (469.7) 2. *Primordial force*. This represents the first basic change in space potency and may be one of the nether Paradis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e know that the space presence going out from nether Paradise is modified in some manner from that which is incoming. But regardless of any such possible relationships, the openly recognized transmutation of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is the

을 일으키는 기능이다.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기세는 1차 결국 생겨난 주(主)기세조직자들의 공간 현존에 의해 충분히 제공된 저항에 응답하면서 활동적이고 원초적이 되어간다. 기세는 이제, 분별불가 절대자의 배타적 권역으로부터 나와서, 여러 겹의 반응 권역—행동의 하느님에 의해 창시되는 어떤 시원적 움직임과 그리고 그 위에 우주 절대자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어떤 보상하는 움직임에 응답하는 권역—안으로 창발하고 있다. 원초 기세는 절대성에 대한 비례 안에서 초월적 원인성에 반응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초기세는 때로 순수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유버사에서 우리는 분리소(分離素)로 부른다.

3. 창발에너지들. 1차 기세조직자들의 수동적 현존은 공간 잠재력을 원초기세로 변환하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동일한 이 기세조직자들이 그들의 최초이자 활동적인 작용들을 시작하는 그러한 활성화 된 공간 지역에서 일어난다. 원초기세는 우주 힘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 현시활동의 영역에서 뚜렷한 두 가지 변형의 위상을 지나도록 정해져 있다. 이들 창발 에너지의 두 차원들은 다음과 같다:

가. 강력 에너지. 이것은 힘찬-방향성이 있고, 집합체-운동성이 있고, 막강한-긴장성이 있으며, 그리고 기세넘친-반응성이 있는 에너지이다.—1차 기세조직자들의 활동들에 의해 움직임으로 정립된 거대한 에너지 체계들이다. 이 1차 곧 강력 에너지는, 처음에는 파라다이스-중력 당김에 대해 분명하게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파라다이스 하부 면에서 작용되는 절대 영향력의 축적된 집단에 대응하는 총체적-집합체, 곧 공간-방향성의 응답을 산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에너지가 파라다이스의 순환적 그리고 절대적-중력 장악에 대해 최초 응답 차원으로 창발하면, 1차 기세 조직자들은 그들의 2차 연관-동료들이 기능하도록 길을 내준다.

나. 중력 에너지. 이제 나타나는 중력-응답 에너지는 우주 힘의 잠재를 지니며 모든 우주 물질의 실질적인 조상이 된다. 이 2차 또는 중력 에너지는 연관-동료 초월 주(主)기세 조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압력-현존 그리고 긴장-동향들에서 기인된 에너지 노작의 산물이다. 이들 기세 조종자들의 작업에 응답하여, 공간-에너지는 강력에서 중력단계로 재빨리 넘어가고, 그리하여 파라다이스(절대) 중력의 순환적 장악에 직접적으로 응답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물질의 전자적 그리고 전자이후 단계의 곧 출현하는 물질적 질량 속에 선천적인 직선-중력 당김에 대한 감응성에 관하여 어떤 잠재를 나타낸다. 중력 응답이 나타나에 따라, 연관-동료 주(主) 기세 조직자들은, 그 활동 마당으로 우주 힘 지도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공간의 에너지 소용돌이들로부터 물러나도 된다.

primary differentiating function of the tension-presence of the living Paradise force organizers.

42:2.8 (469.8) Passive and potential force becomes active and primordial in response to the resistance afforded by the space presence of the Primary Eventuated Master Force Organizers. Force is now emerging from the exclusive domai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to the realms of multiple response — response to certain primal motions initiated by the God of Action and thereupon to certain compensating motions emanating from the Universal Absolute. Primordial force is seemingly reactive to transcendental causation in proportion to absoluteness.

42:2.9 (469.9) Primordial force is sometimes spoken of as *pure energy*; on Uversa we refer to it as SEGREGATA.

42:2.10 (470.1) 3. *Emergent energies*. The passive presence of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is sufficient to transform space potency into primordial force, and it is upon such an activated space field that these same force organizers begin their initial and active operations. Primordial force is destined to pass through two distinct phases of transmutation in the realms of energy manifestation before appearing as universe power. These two levels of emerging energy are:

42:2.11 (470.2) a. *Puissant energy*. This is the powerful-directional, mass-movemented, mighty-tensioned, and forcible-reacting energy — gigantic energy systems set in motion by the activities of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This primary or puissant energy is not at first definitely responsive to the Paradise-gravity pull though probably yielding an aggregate-mass or space-directional response to the collective group of absolute influences operative from the nether side of Paradise. When energy emerges to the level of initial response to the circular and absolute-gravity grasp of Paradise, the primary force organizers give way to the functioning of their secondary associates.

42:2.12 (470.3) b. *Gravity energy*. The now-appearing gravity-responding energy carries the potential of universe power and becomes the active ancestor of all universe matter. This secondary or gravity energy is the product of the energy elaboration resulting from the pressure-presence and the tension-trends set up by the Associate Transcendental Master Force Organizers. In response to the work of these force manipulators, space-energy rapidly passes from the puissant to the gravity stage, thus becoming directly responsive to the circular grasp of Paradise (absolute) gravity while disclosing a certain potential for sensitivity to the linear-gravity pull inherent in the soon appearing material mass of the electronic and the postelectronic stages of energy and matter. Upon the appearance of gravity

우리는 기세 진화의 초기 단계들의 정확한 원인에 관해 매우 확신이 없지만, 창발-에너지 현시 활동의 두 차원 모두에서의 궁극자의 지능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 강력 그리고 중력 에너지는, 축적하여 생각할 때, 유버사에서 궁극소(窮極素)라고 불린다.

4. 우주 힘. 공간-기세는 이미 공간-에너지로, 그리고 나서 중력 통제를 받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에너지는 그것이 힘 통로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고 우주 창조자들의 각가지 목적들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그 지점까지 무르익어 왔다. 이 작업은—조직화되고 거주민이 사는 창조계들—대우주 안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다양한 지도자들, 중심들 그리고 통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우주 힘 지도자들은 일곱 초우주들의 현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개 위상 에너지 중에서 21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벽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힘-에너지-물질의 이 권역은 최극자의 시간-공간 전반적-통제 하에서 기능하는 칠중 하느님의 지능 활동들의 영역이다.

유버사에서 우리는 우주 힘의 영역을 중력소(重力素)라고 부른다.

5. 하보나 에너지. 개념 면에서 이 이야기는 변형되는 공간-기세가, 한 차원 한 차원, 시공 우주들의 에너지-힘 활동차원까지 이어져 오면서 파라다이스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계속가면, 중앙우주의 특징이 되는 에너지의 실존-이전(以前) 위상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화적인 순환은 그 자체에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힘은 이제 기세를 향하여 역회전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세 본성은 공간 잠재력 그리고 원초기세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하보나 에너지 체계는 이원적이지 아니다. 그들은 삼원일체(三元一體)이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신하여 기능하는, 공동 행위자의 실존적 에너지 권역이다.

유버사에서는 하보나의 이 에너지들이 삼력소(三力素)라고 알려져 있다.

6. 초월 에너지. 이 에너지 체계는 파라다이스의 위쪽 차원으로부터 그리고 그곳에서 작동하며 아(亞)절대적 민족들과 관련해서만 작동한다. 유버사에서는 그것을 초월소(超越素)라고 부른다.

7. 단일소(單一素). 에너지는 그것이 파라다이스 에너지일 때 신성의 일가로서 가깝다. 우리는 단일소(單一素)가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비(非)영 에너지—기원 아들의 영 에너지, 살아있는 영원 사본—그러므로, 우주 아버지의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라고 믿고자 한다.

response, the Associate Master Force Organizers may retire from the energy cyclones of space provided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re assignable to that field of action.

42.2.13 (470.4) We are quite uncertain regarding the exact causes of the early stages of force evolution, but we recognize the intelligent action of the Ultimate in both levels of emergent-energy manifestation. Puissant and gravity energies, when regarded collectively, are spoken of on Uversa as ULTIMATA.

42.2.14 (470.5) 4. *Universe power.* Space-force has been changed into space-energy and thence into the energy of gravity control. Thus has physical energy been ripened to that point where it can be directed into channels of power and made to serve the manifold purposes of the universe Creators. This work is carried on by the versatile directors, centers, and controllers of physical energy in the grand universe — the organized and inhabited creations. These Universe Power Directors assume the more or less complete control of twenty-one of the thirty phases of energy constituting the present energy system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is domain of power-energy-matter is the realm of the intelligent activities of the Sevenfold, functioning under the time-space overcontrol of the Supreme.

42.2.15 (470.6) On Uversa we refer to the realm of universe power as GRAVITA.

42.2.16 (470.7) 5. *Havona energy.* In concept this narrative has been moving Paradiseward as transmuting space-force has been followed, level by level, to the working level of the energy-power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Continuing Paradiseward, there is next encountered a pre-existent phase of energy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entral universe. Here the evolutionary cycle seems to turn back upon itself; energy-power now seems to begin to swing back towards force, but force of a nature very unlike that of space potency and primordial force. Havona energy systems are not dual; they are triune. This is the existential energy domain of the Conjoint Actor, functioning in behalf of the Paradise Trinity.

42.2.17 (471.1) On Uversa these energies of Havona are known as TRIATA.

42.2.18 (471.2) 6. *Transcendental energy.* This energy system operates on and from the upper level of Paradise and only in connection with the absonite peoples. On Uversa it is denominated TRANOSTA.

42.2.19 (471.3) 7. *Monota.* Energy is close of kin to divinity when it is Paradise energy. We incline to the belief that monota is the living, nonspirit energy of Paradise — an eternity counterpart of the living, spirit energy of the Original Son — hence the nonspiritual energy system of the Universal

우리는 파라다이스 영과 파라다이스 단일소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그것들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의 영적인 현시활동과 비(非)영적인 현시활동이 오직 이름에 의해서만 구분될 수 있는 실체들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칠중 하느님과 생 각 조절자들의 사명활동을 통해서 우주 아버지 에 대한 경배 체험을 얻을 수 있음을 알지만, 어떤 하위-절대 개인성, 심지어는 힘 지도자들이라도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에너지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힘 지도자들이 공간-기세 변환의 기법에 정통하다면, 그들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기세조직자들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이들 힘 지도자들 자신은 에너지 촉매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현존에 의해서 에너지를 단위형태로 분할하고 조직하고 또는 조립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너지 속에는, 이들 힘 실존개체들의 현존으로 그렇게 기능하게 만드는 선천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바돈 멜기세덱들은 조화우주 기세가 우주 힘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오래 전부터 일곱 “신성의 무한성” 중의 하나로서 불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지역우주 상승 동안 나아가볼 수 있는 지점이 거기까지 이다.

조화우주 기세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변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발-에너지 형태를, 대체로 초우주 힘 지도자들의 기능이 시작될 무렵인—파라다이스 중력 활동에 직접 그리고 어김없이 응답하던 때부터 충분하게 익히 알고 있다.

제 3 장. 물질의 분류

중양우주를 제외하고,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은 동일하다. 물질은 물리적 보유특성에서 구성원소의 회전율, 회전하는 원소들의 숫자와 크기, 핵 몸체로부터의 거리 또는 물질의 공간 함유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어떤 기세들의 현존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태양들, 행성들 그리고 공간 몸체들에서, 열 가지의 큰 물질구분이 있다:

1. 극자 물질—물질적 실존의 근본 물리 단위, 전자를 만드는 에너지 입자.

2. 하위-전자 물질—태양의 초(超)기체들이 폭

Father.

42:2.20 (471.4) We cannot differentiate the *nature* of Paradise spirit and Paradise monota; they are apparently alike. They have different names, but you can hardly be told very much about a reality whose spiritual and whose nonspiritual manifestations are distinguishable only by *name*.

42:2.21 (471.5) We know that finite creatures can attain the worship exper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and the Thought Adjusters, but we doubt that any subabsolute personality, even power directors, can comprehend the energy inf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One thing is certain: If the power directors are conversant with the technique of the metamorphosis of space-force, they do not reveal the secret to the rest of us. It is my opinion that they do not fully comprehend the function of the force organizers.

42:2.22 (471.6) These power directors themselves are energy catalyzers; that is, they cause energy to segment, organize, or assemble in unit formation by their presence. And all this implies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inherent in energy which causes it thus to function in the presence of these power entities. The Nebadon Melchizedeks long since denominated the phenomenon of the transmutation of cosmic force into universe power as one of the seven “infinities of divinity.” And that is as far as you will advance on this point during your local universe ascension.

42:2.23 (471.7) Notwithstanding our inability fully to comprehend the origin, nature, and transmutations of cosmic force, we are fully conversant with all phases of emergent-energy behavior from the times of its direct and unmistakable response to the action of Paradise gravity — abou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function of the superuniverse power directors.

3. CLASSIFICATION OF MATTER

42:3.1 (471.8) Matter in all universes, excepting in the central universe, is identical. Matter in its physical properties depends on the revolutionary rates of its component members, the number and size of the revolving members, their distance from the nuclear body or the space content of matter, as well as on the presence of certain forces as yet undiscovered on Urantia.

42:3.2 (471.9) In the varied suns, planets, and space bodies there are ten grand divisions of matter:

42:3.3 (472.1) 1. Ultimatonic matter — the prime physical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 energy particles which go to make up electrons.

42:3.4 (472.2) 2. Subelectronic matter — the

발하고 그리고 반발하는 단계.

3. 전자 물질—전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집단의 여러 구성에 들어가는 다양한 다른 단위들,—물질적 차별화의 전기적 단계.

4. 하위-원자(原子) 물질—뜨거운 태양들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물질.

5. 분쇄된 원자—식어가는 태양들과 우주에 두루 발견되는 것.

6. 이온화 물질—전기적으로, 열에 의해, 또는 X-선의 활동 때문에 그리고 용매 때문에 외부(화학적으로 활동적인) 전자들이 제거된 개별 원자들.

7. 원자 물질—기본적인 조직을 갖는 화학적 단계, 분자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단위들.

8. 물질의 분자 단계—일반적인 조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물질.

9. 방사성 물질—적당한 열과 감소된 중력 압력의 조건하에서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의 조직과 괴 경향과 활동.

10. 붕괴된 물질—식어버린 또는 죽은 태양들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물질. 이 형태의 물질은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약간의 극자적인, 그리고 얼마간의 전자 활동도 있지만, 이 들 단위체들은 매우 근접된 상태에 있으며, 회전율은 크게 감소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물질 분류는 창조된 존재들의 보이는 형태보다는 그 조직과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의 창발의-이전의 단계는 물론,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의 영원한 물질화의 단계도 또한 참작하지 않은 것이다.

제 4 장. 에너지와 물질의 변형

빛, 열, 전기, 자기, 화학,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기원, 본질, 그리고 운명으로 볼 때—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물질적 실체들과 더불어, 하나이며 동일하다.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끝없는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한 우주에서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다른 우주에서는 열이 추가되는 빛으로, 또 다른 우주에서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잘못할 수백만 세월 속에서, 그것은 가만이 못 있는 어떤 형태로서, 갑자기 밀려오는 전기에너지나 또는 자력(磁力)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그

explosive and repellent stage of the solar supergases.

42:3.5 (472.3) 3. Electronic matter — the electrical stage of material differentiation — electrons, protons, and various other units entering into the varied constitution of the electronic groups.

42:3.6 (472.4) 4. Subatomic matter — matter existing extensively in the interior of the hot suns.

42:3.7 (472.5) 5. Shattered atoms — found in the cooling suns and throughout space.

42:3.8 (472.6) 6. Ionized matter — individual atoms stripped of their outer (chemically active) electrons by electrical, thermal, or X-ray activities and by solvents.

42:3.9 (472.7) 7. Atomic matter — the chemical stage of elemental organization, the component units of molecular or visible matter.

42:3.10 (472.8) 8. The molecular stage of matter — matter as it exists on Urantia in a state of relatively stable materialization under ordinary conditions.

42:3.11 (472.9) 9. Radioactive matter — the disorganizing tendency and activity of the heavier elements under conditions of moderate heat and diminished gravity pressure.

42:3.12 (472.10) 10. Collapsed matter — the relatively stationary matter found in the interior of the cold or dead suns. This form of matter is not really stationary; there is still some ultimatic even electronic activity, but these units are in very close proximity, and their rates of revolution are greatly diminished.

42:3.13 (472.11) The foregoing classification of matter pertains to its organization rather than to the forms of its appearance to created beings. Neither does it take into account the pre-emergent stages of energy nor the eternal materializations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4. ENERGY AND MATTER TRANSMUTATIONS

42:4.1 (472.12) Light, heat, electricity, magnetism, chemism, energy, and matter are —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 one and the same thing, together with other material realities as yet undiscovered on Urantia.

42:4.2 (472.13)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almost endless changes to which physical energy may be subject. In one universe it appears as light, in another as light plus heat, in another as forms of energy unknown on Urantia; in untold millions of years it may reappear as some form of restless, surging electrical energy or magnetic power; and still later on it may again appear in a subsequent

리고 나서 나중에 여전히 어떤 뒤이어지는 우주에서, 변환의 어떤 일련의 연속을 두루 지나면서 다양한 물질의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가, 그 영역의 어떤 대재양에서 그 겉모습이 물리적으로 사라짐이 따르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나서, 셀 수 없는 세월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우주들을 거의 끝없이 방랑한 후에, 다시 이 동일한 에너지가 다시-창발하여 여러 차례 그 형태와 잠재를 바꿀지 모른다; 이렇게 이들 변형들은 뒤이어지는 세월과 셀 수 없는 영역에 두루 계속된다. 그래서 물질은 시간의 변이를 겪으면서 그렇게 휩쓸려가며 그러나 참으로 언제까지나 영원의 순환계를 휘돌아 회전하고 있다;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랫동안 저지된다 하더라도, 물질은 언제까지나 그 근원에 응답하며, 그것을 내보낸 무한 개인성에 의해 정해진 경로에서 언제까지나 나아간다.

힘 중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는 극자를 전자의 순환회로와 회전으로 변형시키는 일에 주로 관여되고 있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화된 에너지, 극자들의 기본 단위들을 그들이 기술적으로 조종함으로써 힘을 통제하고 합성한다. 그들은 그것이 이 원시상태 안에서 순환되게 하듯이 에너지의 대가들이다. 물리통제자와의 연락에서 그들은 소위 전자단계라 불리는 전기적 차원으로 그것이 변형된 이후일지라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자적으로 조직된 에너지가 그 원자 체계들의 수용돌이 속으로 요동치며 들어갈 때 크게 단축된다. 그러한 물질화가 이루어지면, 이 에너지들은 직선중력의 잡아끄는 힘의 완벽한 장악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중력은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힘 계통들과 에너지 통로에서 양성적으로 활동하지만, 이들 존재는 중력에 대해 오로지 음성적인 관계—그들의 반(反)중력 자질의 행사—만을 갖는다.

모든 공간에 두루, 차가움과 기타 다른 영향이 극자들을 창조적으로 전자로 조직화하는 일에 기여한다. 열은 전자 활동의 척도이지만, 한편 차가움은 열이 없음—비교되는 에너지 휴식—을 의미하며, 창발 에너지는 물론 조직화된 물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중력에 응답하지도 않는 상태인 공간의 우주기세-충전 지위를 의미한다.

중력 현존과 활동은 이론상의 절대 영점(零點)의 등장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절대 영점(零點)의 온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조직화된 공간에 걸쳐, 중력-응답하는 에너지 흐름과 힘 순환회로 그리고 극자 활동들은 물론 조직화를 이루는 전자 에너지들도 있다. 실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유란시아의 대기권도 점점 더 희박하게 되어 약 3,000마일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우주의 이 구역에서 평균적인 공간 물질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네바돈 안에서 가장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알려진 부분은 1입방 인치당—하나의

universe as some form of variable mat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metamorphoses, to be followed by its outward physical disappearance in some great cataclysm of the realms. And then, after countless ages and almost endless wandering through numberless universes, again may this same energy re-emerge and many times change its form and potential; and so do these transformations continue through successive ages and throughout countless realms. Thus matter sweeps on, undergoing the transmutations of time but swinging ever true to the circle of eternity; even if long prevented from returning to its source, it is ever responsive thereto, and it ever proceeds in the path ordained by the Infinite Personality who sent it forth.

42.4.3 (473.1) The power centers and their associates are much concerned in the work of transmuting the ultimatons into the circuits and revolutions of the electron. These unique beings control and compound power by their skillful manipulation of the basic units of materialized energy, the ultimatons. They are masters of energy as it circulates in this primitive state. In liaison with the physical controllers they are able to effectively control and direct energy even after it has transmuted to the electrical level, the so-called electronic stage. But their range of action is enormously curtailed when electronically organized energy swings into the whirls of the atomic systems. Upon such materialization, these energies fall under the complete grasp of the drawing power of linear gravity.

42.4.4 (473.2) Gravity acts positively on the power lanes and energy channels of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but these beings have only a negative relation to gravity — the exercise of their antigravity endowments.

42.4.5 (473.3) Throughout all space, cold and other influences are at work creatively organizing ultimatons into electrons. Heat is the measurement of electronic activity, while cold merely signifies absence of heat — comparative energy rest — the status of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provided neither emergent energy nor organized matter were present and responding to gravity.

42.4.6 (473.4) Gravity presence and action is what prevents the appearance of the theoretical absolute zero, for interstellar space does not have the temperature of absolute zero. Throughout all organized space there are gravity-responding energy currents, power circuits, and ultimatonic activities, as well as organizing electronic energies. Practically speaking, space is not empty. Even the atmosphere of Urantia thins out increasingly until at about three thousand miles it begins to shade off into the average space matter in this section of the universe. The most nearly

전자에 해당하는—약 100개 극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물질의 희박성은 실질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온도—열과 차가움—은 에너지와 물질 진화의 영역에서 중력 다음으로 중요하다. 극자들은 온도의 양극단에 겸허하게 복종하고 있다. 낮은 온도는 일정 형태의 전자 구축과 원자 조합을 도와주는 반면, 높은 온도는 모든 종류의 원자 붕괴와 물질적 집대성-해체활동을 촉진시킨다.

일정한 내부의 태양상태의 열과 압력에 종속될 때, 물질의 가장 시원적인 관계적-연합들이 거의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열은 중력 안정을 크게 압도한다. 그러나 알려진 어떤 태양열이나 압력도 극자들을 강력에너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타오르는 태양들은 물질을 다양한 에너지 형태들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흑암세계들과 모든 다른 외계 공간은 이들 에너지들이 영역의 물질로 바꾸는 지점까지 전자적 그리고 극자 활동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까운 본성의 특정한 전자 관계적-연합들은, 대부분의 핵 물질 기본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방된 공간의 지극히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고, 그리고는 물질화를 이루는 에너지의 더욱 큰 응집으로 관계적-연합됨으로써 증강된다.

에너지와 물질의 이 결코-끝남 없는 모든 변환에 두루, 우리는 중력 압력의 영향과 그리고 온도, 속도, 회전의 일정조건 아래에 있는 극자의 에너지들의 반(反)중력 습성들의 영향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도, 에너지 흐름, 거리, 그리고 살아있는 기체조직자들과 힘 지도자들의 현존도 에너지와 물질의 모든 변형 현상에 또한 관여한다.

물질에서 질량의 증가는 빛의 속도 제곱으로 나눈 에너지 증가와 같다. 동적인 의미에서, 쉬고 있는 물질이 이행할 수 있는 일은, 파라다이스로부터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오는데 소비된 에너지에서, 변천 중에 극복한 기체의 저항력과 물질의 부분들에 의해 서로 각각에 행사되는 인력을 뺀 것과 동일하다.

물질의 전자-이전(以前) 형태들의 실존은 납의 두 가지 원자무게로 알 수 있다. 기원적 형성의 납은 라듐을 방출함으로써 우라늄이 집대성-해체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것보다 약간 더 무겁다; 원자무게에서의 이 차이는 원자 붕괴에서 에너지의 실재손실을 대표한다.

물질의 상대적인 고결한-순수성은 에너지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양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정확한 양으로써만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물질 영역에서 이 방법이 마

empty space known in Nebadon would yield about one hundred ultimatons — the equivalent of one electron — in each cubic inch. Such scarcity of matter is regarded as practically empty space.

42.4.7 (473.5) Temperature — heat and cold — is secondary only to gravity in the realms of energy and matter evolution. Ultimatons are humbly obedient to temperature extremes. Low temperatures favor certain forms of electronic construction and atomic assembly, while high temperatures facilitate all sorts of atomic breakup and material disintegration.

42.4.8 (473.6) When subjected to the heat and pressure of certain internal solar states, all but the most primitive associations of matter may be broken up. Heat can thus largely overcome gravity stability. But no known solar heat or pressure can convert ultimatons back into puissant energy.

42.4.9 (473.7) The blazing suns can transform matter into various forms of energy, but the dark worlds and all outer space can slow down electronic and ultimatonic activity to the point of converting these energies into the matter of the realms. Certain electronic associations of a close nature, as well as many of the basic associations of nuclear matter, are formed in the exceedingly low temperatures of open space, being later augmented by association with larger accretions of materializing energy.

42.4.10 (473.8) Throughout all of this never-ending metamorphosis of energy and matter we must reckon with the influence of gravity pressure and with the antigravity behavior of the ultimatonic energies under certain conditions of temperature, velocity, and revolution. Temperature, energy currents, distance, and the presence of the living force organizers and the power directors also have a bearing on all transmutation phenomena of energy and matter.

42.4.11 (474.1) The increase of mass in matter is equal to the increase of energy divided by the square of the velocity of light. In a dynamic sense the work which resting matter can perform is equal to the energy expended in bringing its parts together from Paradise minus the resistance of the forces overcome in transit and the attraction exerted by the parts of matter on one another.

42.4.12 (474.2) The existence of pre-electronic forms of matter is indicated by the two atomic weights of lead. The lead of original formation weighs slightly more than that produced through uranium disintegration by way of radium emanations; and this difference in atomic weight represents the actual loss of energy in the atomic breakup.

42.4.13 (474.3) The relative integrity of matter is assured by the fact that energy can be absorbed or released only in those exact amounts which Urantia scientists have designated quanta. This

런된 것은 우주들이 그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유지하는 데 봉사한다.

전자의 또는 다른 위치들이 바뀌면서 얻거나 빼앗기는 에너지의 양은 항상 하나의 “양자” 또는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에너지 단위의 진동하는 또는 파동형태의 속성은 관련된 물질구조의 규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한 파동 형태의 에너지 물질은 극자, 전자, 원자, 또는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단위체들의 직경의 860배이다. 양자 행태에서의 파동 구조를 관찰할 때 나타나는 끝이-없는 혼동은 에너지 파동들의 초(超)부담에 기인 한다: 두 개의 물마루가 합쳐져서 두 배 높이의 한 물마루로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물마루와 한 물계곡이 합쳐져서 서로 상쇄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

wise provision in the material realms serves to maintain the universes as going concerns.

42.4.14 (474.4) The quantity of energy taken in or given out when electronic or other positions are shifted is always a “quantum” or some multiple thereof, but the vibratory or wavelike behavior of such units of energy is wholly determined by the dimensions of the material structures concerned. Such wavelike energy ripples are 860 times the diameters of the ultimatons, electrons, atoms, or other units thus performing. The never-ending confusion attending the observation of the wave mechanics of quantum behavior is due to the superimposition of energy waves: Two crests can combine to make a double-height crest, while a crest and a trough may combine, thus producing mutual cancellation.

제 5 장. 파동-에너지 현시활동

오르본톤 초우주에는 100개의 8행(行) 파동 에너지들이 있다. 에너지 현시활동의 이 100개 집단 중에서 64개가 유란시아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태양 광선들은 초우주 척도로 볼 때 4개의 8행(行)들을 구성하는데, 가시 광선은 하나의 단일 8행(行), 이 연속물 중 46번을 포용한다. 자외선 집단이 다음에 오고 한편, 그 위로 10개의 8행(行)들은 X 선들이고, 라듐의 감마 광선들이 뒤따른다. 태양의 가시광선 위쪽으로 32개 8행(行)들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들의 연관된 물질의 미세입자와 너무나 자주 혼합되는 외계 공간의 에너지 광선들이다. 가시 태양광선의 그 아래쪽에는 적외선이 나타나며, 그리고 밑에 있는 30개의 8행(行)들은 무선송신 집단들이다.

파동형태 에너지 현시활동은—20세기 유란시아 과학적 깨우침의 입장에서 볼 때—다음과 같이 10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극자 아래 광선들—극자들이 분명한 형태를 짓기 시작하면서 갖는 경계지대 극자들의 회전. 이것은 파동 형태 현상이 감지되고 측정될 수 있는 창발 에너지의 최초 단계이다.

2. 극자 광선들.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공간 내용으로 진동을 유래시키는 극자의 미세구체 안에 있는 에너지의 조합. 그리고 언젠가는 물리학자들이 극자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은 유란시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들 광선의 현상을 틀림없이 감지할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광선들은 물질의 전자적 조직을 향하여 전향하는 그점까지 속도를 낮추어 가는 극자들의 최초 활동을 대표한다. 극자들이 전자로 뭉쳐질 때, 응축이 필연적인 에너지 저장으로 발생한다.

5. WAVE-ENERGY MANIFESTATIONS

42.5.1 (474.5)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ere are one hundred octaves of wave energy. Of these one hundred groups of energy manifestations, sixty-four are wholly or partially recognized on Urantia. The sun's rays constitute four octaves in the superuniverse scale, the visible rays embracing a single octave, number forty-six in this series. The ultraviolet group comes next, while ten octaves up are the X rays, followed by the gamma rays of radium. Thirty-two octaves above the visible light of the sun are the outer-space energy rays so frequently commingled with their associated highly energized minute particles of matter. Next downward from visible sunlight appear the infrared rays, and thirty octaves below are the radio transmission group.

42.5.2 (474.6) Wavelike energy manifestations — from the standpoint of twentieth-century Urantia scientific enlightenment — may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en groups:

42.5.3 (474.7) 1. *Infraultimatic rays* — the borderland revolutions of ultimatons as they begin to assume definite form. This is the first stage of emergent energy in which wavelike phenomena can be detected and measured.

42.5.4 (474.8) 2. *Ultimatic rays*. The assembly of energy into the minute spheres of the ultimatons occasions vibrations in the content of space which are discernible and measurable. And long before physicists ever discover the ultimaton, they will undoubtedly detect the phenomena of these rays as they shower in upon Urantia. These short and powerful rays represent the initial activity of the ultimatons as they are slowed down to that point where they veer towards the electronic organization of matter. As the ultimatons aggregate into electrons, condensation occurs with a consequent storage of energy.

3. 짧은 공간 광선들. 이들은 모든 순수하게 전자적인 진동들 중에서 가장 짧으며 물질의 이 형태의 원자-이전(以前) 단계를 대표한다. 이들 광선은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거나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이들 공간 광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자 탄생에서 수반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 붕괴의 징후이다. 그것들은 외계우주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인 초우주, 은하계의 가장 조밀한 평면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이 발산된다.

4. 전자(電子) 단계. 에너지의 이 단계는 일곱 초우주들의 모든 물질화의 기본이다. 전자들이 궤도회전의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낮은 에너지 차원으로 통과할 때, 항상 양자들이 방출된다. 전자들의 궤도변경에는 빛-에너지의 매우 분명하고 정형화된 측정 가능한 입자들의 방출 또는 흡수가 일어나며 한편, 개별 전자는 충격을 당할 때 항상 빛-에너지 입자를 방출한다. 파동형태의 에너지 현시 활동은 또한 양성 몸체와 전자단계의 다른 구성원의 행위에도 수반된다.

5. 감마 광선—원자 물질의 자연 붕괴로 특징되는 방사. 전자 활동의 이 형태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라듐 집대성-해체활동과 연관된 현상 속에 있다.

6. X-선 집단. 전자가 느려지는 다음 단계는 인위적으로 산출된 X 선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 태양 X 선들이 산출된다. 전자 전하(電荷)는 전자장을 만들며; 운동은 전류 흐름을 일으키며;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하나의 전자가 갑자기 멈추면, 그에 따라 생기는 전자기 격동은 X 선을 산출한다; X 선은 바로 그 동요이다. 조금 길다는 것을 제외하면, 태양 X 선은 인체의 내부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발생된 것들과 동일하다.

7. 자외선 곧 태양의 화학적 광선과 다양한 기계적 생성물.

8. 백색광—태양의 가시광선 전체.

9. 적외선—여전히 열로 감지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하면서 점점 느려지는 전자 활동.

10. 헤르츠의 파동—유란시아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에너지들.

파동형태 에너지 활동의 이들 10개 위상 전체에서, 인간의 눈은 오직 하나의 8행(行), 보통 태양 광선의 빛 전체에만 반응한다.

이른바 에테르라는 것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느 집단의 기세와 에너지 활동을 지칭하는 집합적 명칭에 불과하다. 극자, 전자, 그리고 다른 에너

42:5.5 (475.1) 3. *The short space rays.* These are the shortest of all purely electronic vibrations and represent the preatomic stage of this form of matter. These rays require extraordinarily high or low temperatures for their production. There are two sorts of these space rays: one attendant upon the birth of atoms and the other indicative of atomic disruption. They emanate in the largest quantities from the densest plane of the superuniverse, the Milky Way, which is also the densest plane of the outer universes.

42:5.6 (475.2) 4. *The electronic stage.* This stage of energy is the basis of all materialization in the seven superuniverses. When electrons pass from higher to lower energy levels of orbital revolution, quanta are always given off. Orbital shifting of electrons results in the ejection or the absorption of very definite and uniform measurable particles of light-energy, while the individual electron always gives up a particle of light-energy when subjected to collision. Wavelike energy manifestations also attend upon the performances of the positive bodie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electronic stage.

42:5.7 (475.3) 5. *Gamma rays* — those emanations which characterize the spontaneous dissociation of atomic matter. The best illustration of this form of electronic activity is in the phenomena associated with radium disintegration.

42:5.8 (475.4) 6. *The X-ray group.* The next step in the slowing down of the electron yields the various forms of solar X rays together with artificially generated X rays. The electronic charge creates an electric field; movement gives rise to an electric current; the current produces a magnetic field. When an electron is suddenly stopped, the resultant electromagnetic commotion produces the X ray; the X ray is *that* disturbance. The solar X rays are identical with those which are mechanically generated for exploring the interior of the human body except that they are a trifle longer.

42:5.9 (475.5) 7. *The ultraviolet* or chemical rays of sunlight and the various mechanical productions.

42:5.10 (475.6) 8. *The white light* — the whole visible light of the suns.

42:5.11 (475.7) 9. *Infrared rays* — the slowing down of electronic activity still nearer the stage of appreciable heat.

42:5.12 (475.8) 10. *Hertzian waves* — those energies utilized on Urantia for broadcasting.

42:5.13 (475.9) Of all these ten phases of wavelike energy activity, the human eye can react to just one octave, the whole light of ordinary sunlight.

42:5.14 (475.10) The so-called ether is merely a collective name to designate a group of force and energy activities occurring in space. Ultimatons,

지 질량 집합체들은 일정형식의 물질 입자이며, 공간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것은 실제로 직선으로 진행한다. 빛과 다른 모든 형태의 식별할 수 있는 에너지 현시활동들은 중력 그리고 중간에 개재하는 다른 기체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직선으로 진행되는 명확한 에너지 입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관찰 조건 밑에서, 에너지 입자들의 이 행렬이 파동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공간의 확일적 기체의 덮개, 가설적인 에테르의 저항력과 물질의 연관된 집합체의 중력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물질의 입자간격들에 있는 공간은, 에너지 빔줄기의 초기 속도와 함께, 여러 형태의 에너지-물질의 물질 모양의 출현을 만든다.

배가 물을 가르고 지나갈 때 진폭과 간격이 변하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공간 내용의 자극이 급속히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의 통과에 대해 물결 같은 반응을 만든다.

원초기세 행위는 너희의 가정된 에테르와 여러 면으로 유사한 현상들을 일으킨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모든 공간의 구체들은 펼쳐지는 기체-에너지의 광대한 바다를 지나 소용돌이치며 돌입한다; 한 원자 내부의 공간조차도 비어 있지 않다. 아무런 에테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가정적 에테르 바로 그것이 거주민이 사는 행성으로 하여금 태양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게 하며 에워싸 돌고 있는 전자가 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항하게 한다.

제 6 장. 극자, 전자, 그리고 원자

우주 기체의 공간 충전이 균일하고 확일적인 반면,—정교한 중력 반응—회전하는 에너지를 물질로 조직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와 확정된 무게를 갖는 개개 질량체 안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을 수반한다.

지역적 또는 직선적 중력은 물질의 원자 조직의 출현과 함께 충분히 작용하게 된다. 원자-이전(以前) 물질이 X 선 그리고 다른 비슷한 에너지들에 의해 활성화 될 때에는 약한 중력 응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유롭고 중속되어 있지 않으며 충전되지 않은 전자-에너지 입자 또는 연관되지 않은 극자들에게는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직선-중력의 끌어당김이 미치는 것이 없다.

극자들은 오직 순환하는 파라다이스-중력 잡아당김에만 응답하면서, 상호간의 인력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그들은 직선-중력 응답이 없이 우주 공간의 표류에 붙잡혀 있다. 극자들은 부분적 반(反)중력 작용점에 이르기까지 회전 속도를 가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체조직자들 또는 힘 지도자들과 독립하여, 강력에너지 단계로 되돌아가는 비(非)개별화를 위한 임계 탈출 속도를 달성하

electrons, and other mass aggregations of energy are uniform particles of matter, and in their transit through space they really proceed in direct lines. Light and all other forms of recognizable energy manifestations consist of a succession of definite energy particles which proceed in direct lines except as modified by gravity and other intervening forces. That these processions of energy particles appear as wave phenomena when subjected to certain observations is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undifferentiated force blanket of all space, the hypothetical ether, and to the intergravity tension of the associated aggregations of matter. The spacing of the particle-intervals of matter, together with the initial velocity of the energy beams, establishes the undulatory appearance of many forms of energy-matter.

42:5.15 (476.1) The excitation of the content of space produces a wavelike reaction to the passage of rapidly moving particles of matter, just as the passage of a ship through water initiates waves of varying amplitude and interval.

42:5.16 (476.2) Primordial-force behavior does give rise to phenomena which are in many ways analogous to your postulated ether. Space is not empty; the spheres of all space whirl and plunge on through a vast ocean of outspread force-energy; neither is the space content of an atom empty. Nevertheless there is no ether, and the very absence of this hypothetical ether enables the inhabited planet to escape falling into the sun and the encircling electron to resist falling into the nucleus.

6. ULTIMATONS, ELECTRONS, AND ATOMS

42:6.1 (476.3) While the space charge of universal force is homogeneous and undifferentiated, the organization of evolved energy into matter entails the concentration of energy into discrete masses of definite dimensions and established weight — precise gravity reaction.

42:6.2 (476.4) Local or linear gravity becomes fully operative with the appearance of the atomic organization of matter. Preatomic matter becomes slightly gravity responsive when activated by X ray and other similar energies, but no measurable linear-gravity pull is exerted on free, unattached, and uncharged electronic-energy particles or on unassociated ultimatons.

42:6.3 (476.5) Ultimatons function by mutual attraction, responding only to the circular Paradise-gravity pull. Without linear-gravity response they are thus held in the universal space drift. Ultimatons are capable of accelerating revolutionary velocity to the point of partial antigravity behavior, but they cannot, independent of force organizers or power directors, attain the

지는 못한다. 본질적으로, 극자들은 오직 식어버리고 죽어가는 태양의 마지막 붕괴에 참여할 경우에만 물리적 실존의 지위를 벗어난다.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극자들은, 전자 조직에 필수 조건인 회전-에너지를 달성하기 전에, 여러 위상의 물리적 활동을 통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극자들은 운동의 세 가지 변화성을 가지고 있다: 조화우주 기세에 대한 상호 저항력, 반(反)중력 잠재에서의 개별 회전, 그리고 상호 내부-연관된 100개 극자들의 내부전자 위치이다.

상호간의 인력은 전자의 조직에서 100개 극자들을 묶어둔다; 전형적인 전자 안에는 정확하게 100개의 극자들이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극자를 잃어버리면 전형적인 전자적 정체성이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전자의 10가지 변형형태 중 하나가 만들어진다.

극자들은 전자내부에서 순환회로(回路)를 이루어 소용돌이치거나 궤도를 그리지는 않지만, 그들의 축 회전 속도들에 따라 퍼지거나 군(群)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전자 규모를 결정한다. 바로 이 극자의 축 회전속도는 또한 전자 단위들의 여러 유형의 음성 또는 양성 반응들을 결정한다. 전체적인 전자 물질의 분리와 집단화는, 에너지-물질의 음성체 그리고 양성체들의 전기적 차별화와 함께, 이렇게 극자적으로 상호-연관하는 요소들의 이들 다양한 기능들로부터 기인된다.

각 원자는 직경이 1인치의 1억 분의 1을 약간 넘는 반면, 전자 1개의 무게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2,000분의 1보다 약간 무겁다. 원자핵의 특징인 양성인 양성자는, 음성인 전자보다 크지는 않은 반면, 무게는 거의 2,000배 더 무겁다.

물질의 질량이 커져서, 전자가 1온스의 10분의 1과 같은 무게가 될 수 있다면, 같은 비율로 확대되었을 때의 그러한 전자의 부피는 지구만큼 크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 전자의 1,800배 무게인—한 개의 양성자의 부피가 못의 머리만큼 확대되어 본다면, 그에 비례한, 하나의 못의 머리는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의 직경과 같아질 것이다.

제 7 장. 원자 물질

모든 물질의 형태화는 대략 태양계의 계층과 같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미세한 우주의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비교적 고정된, 물질 실

critical escape velocity of deindividuation, return to the puissant-energy stage. In nature, ultimatons escape the status of physical existence only when participating in the terminal disruption of a cooled-off and dying sun.

42:6.4 (476.6) The ultimatons, unknown on Urantia, slow down through many phases of physical activity before they attain the revolutionary-energy prerequisites to electronic organization. Ultimatons have three varieties of motion: mutual resistance to cosmic force, individual revolutions of antigravity potential, and the intraelectronic positions of the one hundred mutually interassociated ultimatons.

42:6.5 (476.7) Mutual attraction holds one hundred ultimatons together in the constitution of the electron; and there are never more nor less than one hundred ultimatons in a typical electron. The loss of one or more ultimatons destroys typical electronic identity,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one of the ten modified forms of the electron.

42:6.6 (476.8) Ultimatons do not describe orbits or whirl about in circuits within the electrons, but they do spread or cluster in accordance with their axial revolutionary velocities, thus determining the differential electronic dimensions. This same ultimatonic velocity of axial revolution also determines the negative or positive reactions of the several types of electronic units. The entire segregation and grouping of electronic matter, together with the electric differentia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bodies of energy-matter, result from these various functions of the component ultimatonic interassociation.

42:6.7 (477.1) Each atom is a trifle over 1/100,000,000th of an inch in diameter, while an electron weighs a little more than 1/2,000th of the smallest atom, hydrogen. The positive proton, characteristic of the atomic nucleus, while it may be no larger than a negative electron, weighs almost two thousand times more.

42:6.8 (477.2) If the mass of matter should be magnified until that of an electron equaled one tenth of an ounce, then were size to be proportionately magnified, the volume of such an electron would become as large as that of the earth. If the volume of a proton — eighteen hundred times as heavy as an electron — should be magnified to the size of the head of a pin, then, in comparison, a pin's head would attain a diameter equal to that of the earth's orbit around the sun.

7. ATOMIC MATTER

42:7.1 (477.3) The formation of all matter is on the order of the solar system. There is at the center of every minute universe of energy a relatively stable, comparatively stationary, nuclear portion of

존의 핵 부분이 있다. 이 단위 중심은 삼중적 현시 활동 가능성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이 에너지 중심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별 집단과 희미하게 견주어 볼 수 있는 단위 에너지들이, 끝없이 풍부하게 그러한 한편 동요하는 순환회로로서 소용돌이친다.

원자 내부에서 전자들은, 태양계의 공간 안에서 행성들이 태양주변을 돌면서 가지는 공간과 대체로 비슷한 상대적 공간을 가지고, 중앙 양성자 둘레를 회전한다. 실제 크기로 비교해 볼 때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과 너희 태양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상대적 거리가 원자핵과 안쪽의 전자 순환회로 사이에 있다.

전자의 축 회전과 원자핵 둘레를 도는 궤도 속도는 둘 모두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며, 그들의 구성요소인 극자들의 속도는 말할 것도 없다. 라듐의 양성 입자들은 초당 1만 마일의 속도로 공간 속으로 날아가 버리며 한편, 음성 입자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지역우주는 10진법 소수의 구조로 되어있다. 이원적(二元的) 우주에는 정확하게 100개의 식별 가능한 공간-에너지의 원자 물질화가 있다; 이것이 네바돈에서 최대로 가능한 물질 조직이다. 이 100개 물질 형태들은 비교적 조밀한 핵인 중앙 둘레를 1개부터 100개의 전자들이 도는 규칙적인 연속물로 구성된다. 물질을 조성하는 것이란 바로 이 다양한 에너지를 질서 있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관계적-연합하는 것이다.

식별 가능한 100 가지 원소들을 모든 세계가 그 표면에 현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 있거나, 있었거나, 또는 진화의 과정에 있다. 행성의 기원 그리고 그 이후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100개 원자 유형 중에서 몇 개가 관찰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비교적 무거운 원자들은 많은 세계들의 지표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경우에도, 이미 알려진 라듐의 속성이 보여주다시피,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은 조각이 되어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원자의 안정성은 중앙체에 있는 전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성자의 숫자에 달려있다. 화학적 속성은 자유롭게 회전하는 전자들의 활동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된다.

오르본톤에서는 하나의 원자 체계 안에서 궤도를 도는 전자들을 100개 이상 조립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가능한 적이 결코 없었다. 101개를 인위적으로 궤도의 장(場)에 주입하였을 때, 그 결과는 전자들 그리고 기타 자유에너지들이 사납게 분산되면서, 중앙의 양성자가 언제나 거의 순간적으로 붕괴되었다.

material existence. This central unit is endowed with a threefold possibility of manifestation. Surrounding this energy center there whirl, in endless profusion but in fluctuating circuits, the energy units which are faintly comparable to the planets encircling the sun of some starry group like your own solar system.

42.7.2 (477.4) Within the atom the electrons revolve about the central proton with about the same comparative room the planets have as they revolve about the sun in the space of the solar system. There is the same relative distance, in comparison with actual size, between the atomic nucleus and the inner electronic circuit as exists between the inner planet, Mercury, and your sun.

42.7.3 (477.5) The electronic axial revolutions and their orbital velocities about the atomic nucleus are both beyond the human imagination, not to mention the velocities of their component ultimatons. The positive particles of radium fly off into space at the rate of ten thousand miles a second, while the negative particles attain a velocity approximating that of light.

42.7.4 (477.6) The local universes are of decimal construction. There are just one hundred distinguishable atomic materializations of space-energy in a dual universe; that is the maximum possible organization of matter in Nebadon. These one hundred forms of matter consist of a regular series in which from one to one hundred electrons revolve around a central and relatively compact nucleus. It is this orderly and dependable association of various energies that constitutes matter.

42.7.5 (477.7) Not every world will show one hundred recognizable elements at the surface, but they are somewhere present, have been present, or are in process of evolution. Conditions surrounding the origin and subsequent evolution of a planet determine how many of the one hundred atomic types will be observable. The heavier atoms are not found on the surface of many worlds. Even on Urantia the known heavier elements manifest a tendency to fly to pieces, as is illustrated by radium behavior.

42.7.6 (477.8) Stability of the atom depends on the number of electrically inactive neutrons in the central body. Chemical behavior is wholly dependent on the activity of the freely revolving electrons.

42.7.7 (478.1) In Orvonton it has never been possible naturally to assemble over one hundred orbital electrons in one atomic system. When one hundred and one have been artificially introduced into the orbital field, the result has always been the instantaneous disruption of the central proton with the wild dispersion of the electrons and other liberated energies.

원자들이 궤도를 도는 전자들을 한 개부터 100개 포함할 수 있는 반면, 비교적 큰 원자들의 외곽 층에 있는 10개의 전자만이, 별개의 그리고 분리된 몸체로서 중앙 핵 둘레를 정밀하고도 분명한 궤도에서 온전하고도 치밀하게 휘돌아 회전한다. 중앙에 가장 가까운 30개의 전자들은 분리되고 조직화된 몸체로 관찰되거나 탐지되기가 어렵다. 품고 있는 전자의 수와 상관없이, 핵과의 근접성과 관련된 전자 속성의 동일한 이 상대적 비율은 모든 원자에서 성립된다. 핵에 근접할수록, 전자의 개별성이 줄어든다. 한 전자의 파동형태 에너지 확장은 비교적 적은 원자 궤도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들에게는 참으로 그렇다.

가장 가까운 궤도에 있는 30개의 전자는 개별성은 있지만, 한 전자에서 다른 전자로 그리고 거의 궤도로 부터 궤도로 확장되면서 그 에너지 체계들은 서로 섞이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의 30개 전자들은 두 번째 집단, 곧 에너지 지대를 이루며, 개별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자체에 속하는 에너지 체계에 대한 더욱 완벽한 통제를 발휘하는 물질체이다. 세 번째 에너지 지대, 그 다음 30개 전자들은 더욱 개별존재화 되었고, 더욱 뚜렷하고 명확한 궤도 안에서 순환한다. 마지막 10개의 전자들은, 가장 무거운 10개 원소에만 있으며, 독립된 장중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체 핵의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다. 4 번째이자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우라늄과 동위원소들의 자연붕괴로서 설명되 다시피, 온도와 압력의 최소 변화에서도 중앙 핵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하나부터 27개의 궤도전자를 포함하는, 처음 27개의 원자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해하기에 더욱 쉽다. 28번째 그 위로,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으로 추정되는 예측불가능성과 점점 더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자의 예측불가능성의 일부는 서로 다른 극자의 축 회전속도,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극자들의 “떼 짓는” 성향 때문이다. 다른—물리적,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중력의—영향들 역시 다양한 전자 속성을 낳도록 작용한다. 예측가능성에서 볼 때 원자들은 그 결과로서 개인들과의 경우와 비슷하다. 통계학자들은 하나의 개별 원자나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많은 원자들 또는 개인들에 적용되는 법칙들은 발표할 수 도 있다.

제 8 장. 원자의 응집

미세 원자에너지 체계를 함께 붙들어 놓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중력인 반면, 이 기본 물리적 단위 안에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강

42.7.8 (478.2) While atoms may contain from one to one hundred orbital electrons, only the outer ten electrons of the larger atoms revolve about the central nucleus as distinct and discrete bodies, intactly and compactly swinging around on precise and definite orbits. The thirty electrons nearest the center are difficult of observation or detection as separate and organized bodies. This same comparative ratio of electronic behavior in relation to nuclear proximity obtains in all atom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electrons embraced. The nearer the nucleus, the less there is of electronic individuality. The wavelike energy extension of an electron may so spread out as to occupy the whole of the lesser atomic orbits; especially is this true of the electrons nearest the atomic nucleus.

42.7.9 (478.3) The thirty innermost orbital electrons have individuality, but their energy systems tend to intermingle, extending from electron to electron and well-nigh from orbit to orbit. The next thirty electrons constitute the second family, or energy zone, and are of advancing individuality, bodies of matter exerting a more complete control over their attendant energy systems. The next thirty electrons, the third energy zone, are still more individualized and circulate in more distinct and definite orbits. The last ten electrons, present in only the ten heaviest elements, are possessed of the dignity of independence and are, therefore, able to escape more or less freely from the control of the mother nucleus. With a minimum variation in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members of this fourth and outermost group of electrons will escape from the grasp of the central nucleus, as is illustrated by the spontaneous disruption of uranium and kindred elements.

42.7.10 (478.4) The first twenty-seven atoms, those containing from one to twenty-seven orbital electrons, are more easy of comprehension than the rest. From twenty-eight upward we encounter more and more of the unpredictability of the supposed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But some of this electronic unpredictability is due to differential ultimatic axial revolutionary velocities and to the unexplained “huddling” proclivity of ultimatons. Other influences — physical, electrical, magnetic, and gravitational — also operate to produce variable electronic behavior. Atoms therefore are similar to persons as to predictability. Statisticians may announce laws governing a large number of either atoms or persons but not for a single individual atom or person.

8. ATOMIC COHESION

42.8.1 (478.5) While gravity is one of several factors concerned in holding together a tiny atomic energy system, there is also present in and among these

력하고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원자의 기본 조성과 궁극적 속성의 비밀, 유란시아에서 발견될 것으로 남아 있는 기체가 또한 제시되어 있다. 이 우주 영향은 이 미세 에너지 조직 안에 포용된 모든 공간에 스며있다.

원자의 상호전자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원자에 두루 이 상호전자 공간은 전자 속도 및 극자회전과 완전하게 동조되는, 파동형태의 현시활동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된다. 이 기체는 너희에게 알려진 양과 음의 인력법칙에 전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속성은 때때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 영향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기체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원자핵 안에서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는 전자의 180배만큼 무거운 물질 입자인 중간자의 상호보완 하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배열이 없다면, 양성자로 인하여 야기되는 전하는 원자핵을 붕괴시킬 것이다.

원자들이 조성된 상태에서, 전기적 또는 중력의 기체는 핵을 함께 유지할 수 없다. 핵의 고결한-순수성은 상급의 기체-질량 힘과 그리고 나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게 하는 기능에 의하여 전하와 비전하 입자들을 함께 유지하게 하는 중간자의 상호보완적인 응집기능에 의해 유지된다. 중간자는 핵입자의 전하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끊임없이 오락가락 던져지게 만든다. 1초의 극소 부분의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의 핵입자는 전하를 띤 양성자가 되고 다음에는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지위의 이 교대 현상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전하가 하나의 붕괴 영향력으로 기능할 모든 기회를 빼앗긴다. 그래서 중간자는 원자의 핵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에너지-운반체” 입자로서 기능한다.

중간자의 현존과 기능은 또한 다른 원자의 수 체계에도 설명한다. 원자들이 방사능으로 작용할 때, 그것들은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초과 방사능은, 그로서 간단히 전자가 되는 중간자인 “에너지-운반체”의 파괴로부터 유래된다. 중간자 집대성-해체활동에는 또한 작은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들의 방출이 수반된다.

중간자는 원자핵의 어떤 응집 성질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양성자와 양성자 간의 응집이나 중성자와 중성자의 접촉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원자의 응집하는 고결한-순수성의, 역설적이면서 강력한 기체는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형태이다.

basic physical units a powerful and unknown energy, the secret of their basic constitution and ultimate behavior, a force which remains to be discovered on Urantia. This universal influence permeates all the space embraced within this tiny energy organization.

42:8.2 (478.6) The interelectronic space of an atom is not empty. Throughout an atom this interelectronic space is activated by wavelike manifestations which are perfectly synchronized with electronic velocity and ultimatonic revolutions. This force is not wholly dominated by your recognized laws of positive and negative attraction; its behavior is therefore sometimes unpredictable. This unnamed influence seems to be a space-force reaction of the Unqualified Absolute.

42:8.3 (479.1) The charged protons and the uncharged neutrons of the nucleus of the atom are held together by the reciprocating function of the mesotron, a particle of matter 180 times as heavy as the electron. Without this arrangement the electric charge carried by the protons would be disruptive of the atomic nucleus.

42:8.4 (479.2) As atoms are constituted, neither electric nor gravitational forces could hold the nucleus together. The integrity of the nucleus is maintained by the reciprocal cohering function of the mesotron, which is able to hold charged and uncharged particles together because of superior force-mass power and by the further function of causing protons and neutrons constantly to change places. The mesotron causes the electric charge of the nuclear particles to be incessantly tossed back and forth between protons and neutrons. At one infinitesimal part of a second a given nuclear particle is a charged proton and the next an uncharged neutron. And these alternations of energy status are so unbelievably rapid that the electric charge is deprived of all opportunity to function as a disruptive influence. Thus does the mesotron function as an “energy-carrier” particle which mightily contributes to the nuclear stability of the atom.

42:8.5 (479.3) The presence and function of the mesotron also explains another atomic riddle. When atoms perform radioactively, they emit far more energy than would be expected. This excess of radiation is derived from the breaking up of the mesotron “energy carrier,” which thereby becomes a mere electron. The mesotronic disintegration is also accompanied by the emission of certain small uncharged particles.

42:8.6 (479.4) The mesotron explains certain cohesive properties of the atomic nucleus, but it does not account for the cohesion of proton to proton nor for the adhesion of neutron to neutron. The paradoxical and powerful force of atomic cohesive integrity is a form of energy as yet undiscovered on Urantia.

이들 중간자들은 너희 행성에 그토록 끊임없이 침범하는 우주 광선들 속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42:8.7 (479.5) These mesotrons are found abundantly in the space rays which so incessantly impinge upon your planet.

제 9 장. 자연 철학

9. NATURAL PHILOSOPHY

종교만이 홀로 독단적이 아니다; 자연 철학도 똑같이 독단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종교 선생이 인간의 머리에 구멍이 일곱이기 때문에, 7이 자연에는 기초라고 말했을 때, 만약 그가 화학에 대해 좀 더 알았다더라면, 그는 물리 세계의 참된 현상에 기초를 둔 그러한 믿음을 주창했을 수도 있었다. 에너지에서의 10진법 소수로 이루어진 구성의 우주 현시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물리적 우주에는 이전(以前)물질의 7중 전자 조직인 실체를 언제나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

42:9.1 (479.6) Religion is not alone dogmatic; natural philosophy equally tends to dogmatize. When a renowned religious teacher reasoned that the number seven was fundamental to nature because there are seven openings in the human head, if he had known more of chemistry, he might have advocated such a belief founded on a true phenomenon of the physical world. There is in all the physi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notwithstanding the universal manifestation of the decimal constitution of energy, the ever-present reminder of the reality of the sevenfold electronic organization of prematter.

7이라는 숫자는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선천적 성격 전달의 영 체계에서 기본이다, 그러나 10진법 소수의 체계인 10이라는 숫자는 에너지, 물질 그리고 물질적 창조에서 선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세계는—이 물질세계로 옮겨져서 아주-먼 영적 기원을 암시하는 출생 반점—일곱 집단으로 반복하는 어떤 주기적 특징을 나타낸다.

42:9.2 (479.7) The number seven is basic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he spiritual system of inherent transmissions of character, but the number ten, the decimal system, is inherent in energy, matter, and the material creation. Nevertheless the atomic world does display a certain periodic characterization which recurs in groups of seven — a birthmark carried by this material world indicative of its far-distant spiritual origin.

창조적 조성의 이 7중 잔존은 기본 원소들이 그 원자 무게의 순서로 배열될 때 7로 차별화된 주기로서 비슷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속성들의 반복으로 화학 영역에서 나타내진다. 유란시아 화학 원소들이 이렇게 한 줄로 배열될 때, 어느 주어진 본질특성과 속성은 7배수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일곱에 의한 이 주기적 변화는 전체 화학분석 표에 두루 점점 감소하면서 그리고 변화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비교적 앞에 있는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원자 집합에서 가장 분명하게 관측된다. 어느 한 요소에서 시작하여, 어떤 하나의 특성을 기록한 후에, 그러한 본질특성은 계속되는 여섯 원소에서 변화될 것이지만, 여덟 번째에 이르면, 화학적 활성원소의 여덟 번째 원소는 첫 번째와, 아홉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물리 세계의 이러한 사실은 선조가 되는 에너지의 7중 조성을 뚜렷이 가르치며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의 7중 다양성을 가진 기본적 실체를 나타낸다. 또한 인간은 자연 분광에 일곱 색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42:9.3 (480.1) This sevenfold persistence of creative constitution is exhibited in the chemical domains as a recurrence of simila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in segregated periods of seven when the basic elements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their atomic weights. When the Urantia chemical elements are thus arranged in a row, any given quality or property tends to recur by sevens. This periodic change by sevens recurs diminishingly and with variations throughout the entire chemical table, being most markedly observable in the earlier or lighter atomic groupings. Starting from any one element, after noting some one property, such a quality will change for six consecutive elements, but on reaching the eighth, it tends to reappear, that is, the eighth chemically active element resembles the first, the ninth the second, and so on. Such a fact of the physical world unmistakably points to the sevenfold constitution of ancestral energy and is indicative of the fundamental reality of the sevenfold diversity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Man should also note that there are seven colors in the natural spectrum.

그러나 자연철학의 가정들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설의 에테르는 인간의 공간 현상에 대한 무지를 통합하려는 교묘한 시도를 나타낸다. 우주의 철학은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관찰위에 근거를 둘 수 없다. 과학자는, 아마 그렇

42:9.4 (480.2) But not all the suppositions of natural philosophy are valid; for example, the hypothetical ether, which represents an ingenious attempt of man to unify his ignorance of space phenomena. The philosophy of the universe cannot be

게 전혀 다른 변환을 볼 수가 없다면, 에벌레에서 벗어나 나비로 발전되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싶을 것이다.

생물학적 순응성과 연관된 물리적 안정은 오직 창조의 주(主)고안건축가가 소유한 거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서만 자연 속에 제시되어 있다. 초월 지혜보다 낮은 그 어떤 것도 것처럼 안정되고 효과적인 유연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 단위들을 결코 설계할 수 없다.

제 10 장. 우주적 비(非)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마음 체계)

파라다이스 단일소의 절대성으로부터 공간 잠재력의 절대성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인 조화우주 실체의 끝없는 범위는,—공간 잠재력으로 숨겨져 있고, 단일소로 계시되며, 개재하는 조화우주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비(非)영적 실체들에서의 일정한 관계성의 진화를 암시한다. 이 영원한 에너지 순환주기, 우주들의 아버지 안에서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절대적이고, 절대적 존재이며, 사실이나 가치 어느 면에서도 팽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적 아버지는—언제나처럼—지금도 시간-공간의 원제까지나—확장하는 장(場)에서 자아-실현하고 계시며, 그리고 시간-공간-초월되는, 의미들, 삶의 체험적 투쟁과 개인적 마음을 통한 생생하고 성스러운 영의 전반적-통제에 에너지-물질이 점진적으로 종속 존재가 되는, 변화하는 관계성의 장(場)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계신다.

우주 비(非)영적 에너지들은 다양한 차원에 있는 비(非)-창조자 마음의 살아있는 체계로 재(再)연관되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전(前)보조-영 마음들. 마음의 이 차원은 무(無)체험하는 것이며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주(主)물리통제자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 이것은 기계적 마음, 물질 생명의 가장 원시 형태들의 가르칠 수 없는 지능이지만, 그러나 가르칠 수 없는 마음은 원시 행성식물 생명체외에도 많은 차원에서 기능한다.

2. 보조-영 마음들. 이것은 물질적 마음의 가르칠 수 있는 차원(기계적이 아닌)에 있는 그녀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을 통하여 기능하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사명활동이다. 이 차원에서 물질적 마음은 처음 다섯 보조자들에서 하위-인간적(동물적) 지성으로서; 일곱 보조자들에서 인간적(도덕적) 지성으로서; 마지막 두 보조자들에서 초인간적(중도자) 지성으로서 체험하고 있다.

predicated on the observations of so-called science. If such a metamorphosis could not be seen, a scientist would be inclined to deny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butterfly out of a caterpillar.

42:9.5 (480.3) Physical stability associated with biologic elasticity is present in nature only because of the well-nigh infinite wisdom possessed by the Master Architects of creation. Nothing less than transcendental wisdom could ever design units of matter which are at the same time so stable and so efficiently flexible.

10. UNIVERSAL NONSPIRITUAL ENERGY SYSTEMS (MATERIAL MIND SYSTEMS)

42:10.1 (480.4) The endless sweep of relative cosmic reality, from the absoluteness of Paradise monota to the absoluteness of space potency, is suggestive of certain evolutions of relationship in the nonspiritual realiti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those realities which are concealed in space potency, revealed in monota, and provisionally disclosed on intervening cosmic levels. This eternal cycle of energy, being circuited in the Father of universes, is absolute and, being absolute, is expansile in neither fact nor value; nevertheless the Primal Father is even now — as always — self-realizing of an ever-expanding arena of time-space, and of time-space-transcended, meanings, an arena of changing relationships wherein energy-matter is being progressively subjected to the overcontrol of living and divine spirit through the experiential striving of living and personal mind.

42:10.2 (480.5) The universal nonspiritual energies are reassociated in the living systems of non-Creator minds on various levels, certain of which may be depicted as follows:

42:10.3 (480.6) 1. *Preadjutant-spirit minds*. This level of mind is nonexperiencing and on the inhabited worlds is ministered by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is is mechanical mind, the nonteachable intellect of the most primitive forms of material life, but the nonteachable mind functions on many levels beside that of primitive planetary life.

42:10.4 (481.1) 2. *Adjutant-spirit minds*. This is the ministry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functioning through her seven adjutant mind-spirits on the teachable (nonmechanical) level of material mind. On this level material mind is experiencing: as subhuman (animal) intellect in the first five adjutants; as human (moral) intellect in the seven adjutants; as superhuman (midwayer) intellect in the last two adjutants.

3. 진화하는 모론시아 마음들—지역우주 상승 생애에서 진화하는 개인성들의 확대하는 의식. 이것은 창조자 아들과 연락에 있는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증여이다. 이 마음 차원은 생명 매체의 모론시아 유형의 조직,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힘 감독자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물질계 그리고 영계의 합성을 의미한다. 모론시아 마음은 모론시아 삶의 570개 차원에 응답하여 다르게 기능하는데, 비교적 높은 달성 차원들에서 조화우주 마음과의 증가되는 연관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필사 창조체들의 진화 과정이지만, 그러나 모론시아 계층의 마음은 또한, 우주 아들과 우주 영에 의하여 지역 창조체들의 비(非)모론시아 자녀들에게 증여된다.

조화우주 마음. 이것은 7중으로 다양하게 된 시간과 공간의 마음, 하나의 초우주에 관계하는 각각의 일곱 주(主) 영들에 의해 베풀어지는 하나의 위상이다. 조화우주 마음은 모든 유한-마음 차원들을 둘러싸며 체험적으로는 최극 마음의 진화적-신(神) 차원들과 체험적으로 조화-협동하고 그리고 실존하는 절대 마음차원들—공동 행위자의 직접적 순환회로—과 초월적으로 조화-협동한다.

마음은 파라다이스에서는 절대적이다; 하보나에서는 아(亞)절대적이다; 오르본톤에서는 유한하다. 마음은 언제나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더해진 살아있는 사명활동의 현존-활동을 항상 암시하며, 이것은 모든 차원들에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마음들에서 참말이다. 그러나 조화우주 마음을 지나면 비(非)영적 에너지와 가지는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보나 마음은 하위-절대이지만 초(超)진화이다; 실존적-체험적 존재인, 그것은 너희에게 계시된 어떤 다른 개념보다도 더 아(亞)절대에 가깝다. 파라다이스 마음은 인간의 납득을 벗어난다; 그것은 실존적이고 비(非)영적이며 비(非)시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들 차원들 전체는 공동 행위자의 우주적 현존에 의해—파라다이스에 있는 마음의 하느님의 마음-중력 장악에 의해—드리워져 있다.

제 11 장. 우주 기능구조

마음의 평가와 인식하면서 우주가 기계적이지도 마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이며 그리고 법칙의 기능구조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적용에서, 자연의 법칙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원적(二元的)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 안에서 그것들은 하나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물질화의 시원적 원인이며 동시에 모든 영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버지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하보나-바깥 우주들에서 오직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으로서만—생각 조절자 그리고 다른 비슷한 단편(斷片)화 존재로서—개인으로 나타난다.

42:10.5 (481.2) 3. *Evolving morontia minds* — the expanding consciousness of evolving personalities in the local universe ascending careers. This is the bestowal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in liaison with the Creator Son. This mind level connotes the organization of the morontia type of life vehicle, a synthesis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hich is effected by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of a local universe. Morontia mind functions differentially in response to the 570 levels of morontia life, disclosing increasing associative capacity with the cosmic mind on the higher levels of attainment. This is the evolutionary course of mortal creatures, but mind of a nonmorontia order is also bestowed by a Universe Son and a Universe Spirit upon the nonmorontia children of the local creations.

42:10.6 (481.3) *The cosmic mind.* This is the sevenfold diversified mind of time and space, one phase of which is ministered by each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o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cosmic mind encompasses all finite-mind levels and co-ordinates experientially with the evolutionary-deity levels of the Supreme Mind and transcendently with the existential levels of absolute mind — the direct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42:10.7 (481.4) On Paradise, mind is absolute; in Havona, absonite; in Orvonton, finite. Mind always connotes the presence-activity of living ministry plus varied energy systems, and this is true of all levels and of all kinds of mind. But beyond the cosmic mind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portray the relationships of mind to nonspiritual energy. Havona mind is subabsolute but superevolutionary; being existential-experiential, it is nearer the absonite than any other concept revealed to you. Paradise mind is beyond human understanding; it is existential, nonspatial, and nontemporal. Nevertheless, all of these levels of mind are overshadowed by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Conjoint Actor — by the mind-gravity grasp of the God of mind on Paradise.

11. UNIVERSE MECHANISMS

42:11.1 (481.5) In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mi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universe is neither mechanical nor magical; it is a creation of mind and a mechanism of law. But while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laws of nature operate in what seems to be the dual realms of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in reality they are on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rimal cause of all mater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first and final Father of all spirits. The Paradise Father appears personally in the extra-Havona universes only as pure energy and pure spirit — as the

기능구조들이 전체 창조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들의 우주는 전적으로 마음으로 계획되고 마음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관리-운영된다. 그러나 유한 마음에서의 과학적 방법에 비하여 우주들의 우주의 신성한 기능구조는 모두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무한 마음이 지배하는 흔적조차도 식별할 수 없다. 이는 창조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마음이 물질적 마음도 아니요, 창조체 마음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성한 실체인 창조자 차원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기능하는 영-마음이다.

우주 기능구조 안에서 마음을 식별하고 발견하는 능력은 그러한 관찰 과제에 종사하는 마음의 능력과 범위 그리고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들로부터 조직된 시간-공간 마음들은 시간과 공간의 기능구조에 종속된다.

운동과 우주 중력 작용은 우주들의 우주의 미(未)개인적인 시간-공간 기능구조의 양면이다. 영과 마음 그리고 물질에 응답하는 중력 차원은 시간과는 전혀 독립적이지만, 오직 실체의 참된 영차원들만이 공간(비(非)영적)에 대해 독립적이다. 우주의 더 높은 마음 차원-영-마음 차원-역시 비(非)공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마음처럼 그러한 물질적 마음 차원은 우주 중력의 상호작용에 응답을 보이는데, 이 응답은 오직 영 정체화구현과 비례되어 잃어버린다. 영-실체 차원들은 그들의 영 내용물로서 식별되며, 시간과 공간 속의 영성화는 직선-중력 응답에 반비례하여 가늠된다.

직선-중력 응답은 비(非)영적 에너지에 대한 양적(量的) 측정이다. 모든-조직화된 에너지-질량은 운동과 마음이 그 위에 작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장악력에 종속한다. 내부-원자 응집의 기세가 미세조화우주의 짧은-범위의 기세인 것처럼 직선 중력은 거대조화우주의 짧은-범위의 응집하는 기세이다, 물리적 물질화를 이루는, 그리고 조직화되어 소위 물질이라 불리는 에너지는, 직선-중력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공간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러한 중력 응답이 질량에 정비례하지만, 공간에 개재하는 공간에 의해 너무 변경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대략 비슷해진다. 중력 활동과 그에 대한 모든 응답들을 중화시키려고 작용하는 수많은 초물질적 기세들의 반(反)중력 영향들이 그 안에 현존하기 때문에 공간이 결국에는 직선 중력을 정복한다.

극도로 복잡하고 고도의 자동적-모습으로 나타나는 조화우주 기능구조들은 기원적이고 또는 창조적인 것드는 마음의 현존을 그 기능구조 스스로의 본성과 역량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우주차원

Thought Adjusters and other similar fragmentations.

42:11.2 (481.6) Mechanisms do not absolutely dominate the total creation; the universe of universes *in toto* is mind planned, mind made, and mind administered. But the divine mechanis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ltogether too perfect for the scientific methods of the finite mind of man to discern even a trace of the dominance of the infinite mind. For this creating, controlling, and upholding mind is neither material mind nor creature mind; it is spirit-mind functioning on and from creator levels of divine reality.

42:11.3 (482.1) The ability to discern and discover mind in universe mechanisms depends entirely on the ability, scope, and capacity of the investigating mind engaged in such a task of observation. Time-space minds, organized out of the energies of time and space, are subject to the mechanisms of time and space.

42:11.4 (482.2) Motion and universe gravitation are twin facets of the impersonal time-space mechanism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levels of gravity response for spirit, mind, and matter are quite independent of time, but only true spirit levels of reality are independent of space (nonspatial). The higher mind levels of the universe — the spirit-mind levels — may also be nonspatial, but the levels of material mind, such as human mind, are responsive to the interactions of universe gravitation, losing this response only in proportion to spirit identification. Spirit-reality levels are recognized by their spirit content, and spirituality in time and space is measured inversely to the linear-gravity response.

42:11.5 (482.3) Linear-gravity response is a quantitative measure of nonspirit energy. All mass — organized energy — is subject to this grasp except as motion and mind act upon it. Linear gravity is the short-range cohesive force of the macrocosmos somewhat as the forces of intra-atomic cohesion are the short-range forces of the microcosmos. Physical materialized energy, organized as so-called matter, cannot traverse space without affecting linear-gravity response. Although such gravity respons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mass, it is so modified by intervening space that the final result is no more than roughly approximated when expressed as inversely according to the square of the distance. Space eventually conquers linear gravitation because of the presence therein of the antigravity influences of numerous supermaterial forces which operate to neutralize gravity action and all responses thereto.

42:11.6 (482.4) Extremely complex and highly automatic-appearing cosmic mechanisms always tend to conceal the presence of the originitive or creative indwelling mind from any and all

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지능체에게 항상 숨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낮은 계층의 창조체들에게 비교적 높은 우주 기능구조들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한 결론에 대해 가능한 예외는 오직 명백하게 자아-유지하는 우주의 놀라운 현상에서 마음 작용함을 관련짓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실제적 체험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이다.

마음이 우주를 조화-협동시키기 때문에, 기능구조들의 고착성은 실존하지 않는다. 조화우주 자아-유지와 연관된 점진적인 진화의 현상은 우주적이다. 우주의 진화하는 능력은 자발성의 무한 속에서 고갈되지 않는다. 조화로운 합일을 향한 진보, 언제까지나 증가하는 관계의 복잡성 위에 포개지는 성장하는 체험적 합성은 오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다스리는 마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어떤 우주 현상과 연관하는 우주 마음이 높을수록, 낮은 유형의 마음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우주 기능구조를 만든 마음은 창조적인 영-마음(나아가 무한자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우주의 낮은 차원의 마음으로는 결코 발견하거나 식별될 수 없다, 더구나 전체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음인 인간에 의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화하는 동물 마음은, 하느님-찾는 것이 본성적이지만, 하느님을-아는 것은 혼자서 그리고 그 자체에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제 12 장. 원형틀과 형태—마음 지배

기능구조들의 진화는 창조적 마음의 보이지 않는 현존과 지배를 암시하고 나타낸다. 자동적인 기능구조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창조하는 인간적 지성의 능력은 행성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으로서 인간 마음의 우월하고 창조적이며 의도적인 본질특성들을 실증한다. 마음은 항상 다음을 향하여 뻗어간다:

1. 물질적 기능구조의 창조.
2. 숨겨진 신비의 발견.
3. 멀리 있는 지역의 탐험.
4. 정신 체계의 계통 형성.
5. 지혜 목표의 달성.
6. 영 차원의 성취.
7. 신성한 운명들—최극, 궁극, 그리고 절대—의 성취.

마음은 항상 창조적이다. 개별 동물, 필사자, 모론시아 존재, 영 상승자, 또는 최종 달성자의 마

intelligences very far below the universe levels of the nature and capacity of the mechanism itself.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the higher universe mechanisms must appear to be mindless to the lower orders of creatures. The only possible exception to such a conclusion would be the implication of mindedness in the amazing phenomenon of an *apparently self-maintaining universe* — but that is a matter of philosophy rather than one of actual experience.

42:11.7 (482.5) Since mind co-ordinates the universe, fixity of mechanisms is nonexistent. The phenomenon of progressive evolution associated with cosmic self-maintenance is universal. The evolutionary capacity of the universe is inexhaustible in the infinity of spontaneity. Progress towards harmonious unity, a growing experiential synthesis superimposed on an ever-increasing complexity of relationships, could be effected only by a purposive and dominant mind.

42:11.8 (482.6) The higher the universe mind associated with any universe phenomenon,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 lower types of mind to discover it. And since the mind of the universe mechanism is creative spirit-mind (even the mindedness of the Infinite), it can never be discovered or discerned by the lower-level minds of the universe, much less by the *lowest* mind of all, the human. The evolving animal mind, while naturally God-seeking, is not alone and of itself inherently God-knowing.

12. PATTERN AND FORM — MIND DOMINANCE

42:12.1 (483.1) The evolution of mechanisms implies and indicates the concealed presence and dominance of creative mind. The ability of the mortal intellect to conceive, design, and create automatic mechanisms demonstrates the superior, creative, and purposive qualities of man's mind as the dominant influence on the planet. Mind always reaches out towards:

- 42:12.2 (483.2) 1. Creation of material mechanisms.
- 42:12.3 (483.3) 2. Discovery of hidden mysteries.
- 42:12.4 (483.4) 3. Exploration of remote situations.
- 42:12.5 (483.5) 4. Formulation of mental systems.
- 42:12.6 (483.6) 5. Attainment of wisdom goals.
- 42:12.7 (483.7) 6. Achievement of spirit levels.
- 42:12.8 (483.8) 7. The accomplishment of divine destinies —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42:12.9 (483.9) Mind is always creative. The mind endowment of an individual animal, mortal,

음 자질은 살아있는 창조체 정체성에 적합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몸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언제나 충분하다. 그러나 개인성의 현존 현상이나 혹은 정체성의 원형들은, 그것만으로, 물리적, 마음적, 또는 영적 에너지의 현시활동이 아니다. 개인성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원형을 양상이다; 그것은 에너지들의 배열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과 운동을 더하여, 창조체 실존의 기능구조이다.

심지어 영 존재들도 형태를 가지며, 이들 영 형태(원형들)는 실체이다. 심지어는 가장 높은 유형의 영 개인성들도—유란시아 필사자 몸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개인성 현존—형태를 갖는다. 일곱 초우주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존재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반법칙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의 필사자 연관-동료의 생존되는 혼과 융합할 때까지 형태가 없는 듯하다. 단독 메신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무한한 영의 개인 도움자, 중력 메신저, 초월 기록자, 그리고 특정 존재들도 역시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대표적인 소수의 예외이다; 거의 대부분은 진정한 개인성 형태,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식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조화우주 마음의 연락과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은 진화하는 인간 존재를 위해 합당한 물리적 신체를 진화시킨다.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마음도 모든 필사 생존자에 맞도록 모론시아 형태를 개별화한다. 필사자의 몸이 각 인간 존재마다 고유하고 특징이 있는 것처럼, 모론시아 형태도 매우 개별적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창조적 마음에 상응하는 특징적이다. 어떤 두 사람의 몸이 다른 것처럼 두 모론시아 형태도 같지 않다.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그것으로서 모론시아 생명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차별화 되지 않은 모론시아 물질을 후원하고, 동반하는 세라핌천사들이 그것을 가져온다. 그리고 모론시아 삶 이후에도, 영 형태들이 그들 각자의 영-마음 내주자에 따라 동등하게 다채롭고 개인적이며 특징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질세계에서의 너희는 몸이 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물질적인 눈은 정말로 영-탄생 혼의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이고, 마음은 고안건축자이며, 몸은 물질적 건물이다.

물리적, 영적, 그리고 마음적 에너지는, 그것만으로 그리고 그 순수한 상태에서는, 현상적 우주들의 실재물로서 충분하게 상호작용 하지는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이 세 에너지들이 조화-협동하고, 하보나에서는 조화-협동되고, 반면에 유한 활동의 우주 차원에서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지배의 모든 범위들이 서로 마주치게

morontian, spirit ascender, or finality attainer is always competent to produce a suitable and serviceable body for the living creature identity. But the presence phenomenon of a personality or the pattern of an identity, as such, is not a manifestation of energy, either physical, mindal, or spiritual. The personality form is the *pattern* aspect of a living being; it connotes the *arrangement* of energies, and this, plus life and motion, is the *mechanism* of creature existence.

42:12.10 (483.10) Even spirit beings have form, and these spirit forms (patterns) are real. Even the highest type of spirit personalities have forms — personality presences in every sense analogous to Urantia mortal bodies. Nearly all beings encountere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possessed of forms. But there are a few exceptions to this general rule: Thought Adjusters appear to be without form until after fusion with the surviving souls of their mortal associates. Solitary Messengers, Inspired Trinity Spirits, Personal Aids of the Infinite Spirit, Gravity Messengers, Transcendental Recorders, and certain others are also without discoverable form. But these are typical of the exceptional few; the great majority have bona fide personality forms, forms which are individually characteristic, and which are recognizable and personally distinguishable.

42:12.11 (483.11) The liaison of the cosmic mind and the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evolve a suitable physical tabernacle for the evolving human being. Likewise does the morontia mind individualize the morontia form for all mortal survivors. As the mortal body is personal and characteristic for every human being, so will the morontia form be highly individual and adequately characteristic of the creative mind which dominates it. No two morontia forms are any more alike than any two human bodies.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sponsor, and the attending seraphim provide, the undifferentiated morontia material wherewith the morontia life can begin to work. And after the morontia life it will be found that spirit forms are equally diverse, personal, and characteristic of their respective spirit-mind indwellers.

42:12.12 (483.12) On a material world you think of a body as having a spirit, but we regard the spirit as having a body. The material eyes are truly the windows of the spirit-born soul. The spirit is the architect, the mind is the builder, the body is the material building.

42:12.13 (484.1) Physical, spiritual, and mindal energies, as such and in their pure states, do not fully interact as actuals of the phenomenal universes. On Paradise the three energies are co-ordinate, in Havona co-ordinated, while in the universe levels of finite activities there must be encountered all ranges of material, mindal, and

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의 비(非)개인적 상황에서는, 물리적 에너지가 우세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목적의 신성과 행동의 최극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영-마음이 기능하는 것이 나타나며, 그에 따라 더욱 밀접하게 영 위상이 지배하기 시작 한다; 궁극 차원에서는 영-마음이 거의 완벽하게 지배한다. 절대 차원에서는 반드시 영이 지배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온 그곳에서부터, 신성한 영 실체가 제시되어 있는 그 어느 곳 이던지, 실제적 영-마음이 기능하는 그 어느 때던지, 영 실체와 짝을 이루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부분이 항상 만들어지도록 나아간다.

영은 창조적인 실체이다; 물리적 부분은 영 실체의 시간-공간 반영, 영-마음의 창조적 행동의 물리적 반향이다.

마음은 우주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영의 궁극적 전반적-통제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사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이 그 스스로를 영의 방향 지도를 따르는 것만이, 최극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곧 무한자의 영원한 영 세계에서의 불멸의 자녀로서 필사자 시간-공간 실존이 생존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네바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되었음]

spiritual dominance. In nonpersonal situations of time and space, physical energy seems to predominate, but it also appears that the more nearly spirit-mind function approaches divinity of purpose and supremacy of action, the more nearly does the spirit phase become dominant; that on the ultimate level spirit-mind may become all but completely dominant. On the absolute level spirit certainly is dominant. And from there on out through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wherever a divine spirit reality is present, whenever a real spirit-mind is functioning, there always tends to be produced a material or physical counterpart of that spirit reality.

42:12.14 (484.2) The spirit is the creative reality; the physical counterpart is the time-space reflection of the spirit reality, the physical repercussion of the creative action of spirit-mind.

42:12.15 (484.3) Mind universally dominates matter, even as it is in turn responsive to the ultimate overcontrol of spirit. And with mortal man, only that mind which freely submits itself to the spirit direction can hope to survive the mortal time-space existence as an immortal child of the eternal spirit world of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the Infinite.

42:12.16 (484.4)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on duty in Nebadon and by the request of Gabriel.]

제 43 편 별자리

⇨ 042

유란시아 책

044 ⇨

부 II. 지역우주

제 43 편 별자리

섹션

소개

제 1 장. 별자리 본부

제 2 장. 별자리 정부

제 3 장.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

제 4 장. 산상 집회—총심으로 늘 계신이

제 5 장. 루시퍼 반란 이후의 에덴시아 아버지들

제 6 장. 하느님의 동산

제 7 장. 유니비타시아

제 8 장. 에덴시아 훈련 세계

제 9 장. 에덴시아의 시민권

PAPER 43

THE CONSTELLATION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2.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3.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 Mount Assembly — The Faithful of Days

5. The Edentia Fathers since the Lucifer

Rebellion

6. The Gardens of God

7. The Univitatia

8. The Edentia Training Worlds

9. Citizenship on Edentia

소개

유란시아는 일반적으로 네바돈의 놀라시아 텍에서 사타니아의 606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100개 별자리들 중의 하나인, 놀라시아텍 별자리 안에 위치한, 사타니아 지역체계에서 606번째로 거주민이 사는 세계라는 의미이다. 별자리들은 지역우주의 1차 부분들인데, 그것들의 통치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지역체계들을 구원자별에 있는 지역우주의 중앙 관리-행정에 연결시키며 반영성에 의해서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초(超)관리-행정에 연결시킨다.

너희 별자리의 정부는 771개 고안건축 구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군(群) 안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거대한 것이며 이것이 놀라시아텍의 지고자인 별자리 아버지의 관리-행정 본부인 에덴시아이다. 에덴시아 자체는 너희가 있는 세계보다 약 100배에 이른다. 에덴시아를 감싸고 있는 70개 주요 구체들은 유란시아보다 약 10배에 가까운 반면, 이 70개 세계들 각각의 주위를 회전하는 10개 위성들은 유란시아의 크기와 거의

INTRODUCTION

43:0.1 (485.1) URANTIA is commonly referred to as 606 of Satania in Norlatiadek of Nebadon, meaning the six hundred sixth inhabited world in the local system of Satania, situated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one of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s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Constellations being the primary divisions of a local universe, their rulers link the local systems of inhabited worlds to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the local universe on Salvington and by reflectivity to the superadministr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43:0.2 (485.2) The government of your constellation is situated in a cluster of 771 architectural spheres, the centermost and largest of which is Edentia, the sea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Edentia itself is approximately one hundred times as large as your world. The seventy major spheres surrounding Edentia are about ten times the size of Urantia, while the ten satellites which revolve

같다. 이 771개 고안건축 구체들은 다른 별자리들의 그것들과 크기가 거의 같다.

에덴시아의 시간 계산과 거리 측정은 구원자별의 그것들과 같으며, 우주 수도의 구체들과 비슷한데, 별자리 본부 세계들은 모든 계층의 천상의 지능체들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개인성들은 우주 관리-행정과 관련하여 설명된 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감독자 세라핌천사들, 지역우주 천사들 중 세 번째 계층이 별자리들에서의 봉사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수도 구체들 위에 자기들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돌고 있는 모론시아-훈런 세계들을 광범위하게 돌아본다. 놀라시아텍 안에서 70개 주요 구체들을 비롯하여 700개 소규모 위성들에는 별자리의 영구적인 시민들인 유니비타시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모든 고안건축 세계들은, 그들 대부분은 계시되지 않고 있지만, 효과적인 스피롱가와 아름다운 스포르나기아를 포함하는 비교적 큰 부분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원주민 생명에 의해 충분하게 관리-운영된다. 너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별자리들의 모론시아 삶은 모론시아-훈런 체제 안에서 중간 지점이 되기에 그에 따라서, 전형적이면서도 또한 이상적이다.

제 1 장. 별자리 본부

에덴시아에는 모론시아 생명을 지니고 있고 영적인 영광이 널리 펼쳐진 물리적 물질의 광대한 산맥인 매혹적인 고지들이 많이 있지만, 유란시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울퉁불퉁한 산맥은 그곳에 없다. 그곳에는 수 만 개의 빛나는 호수들과 수백만 개의 연결된 냇물들이 있지만, 큰 바다도 없고 급류가 흐르는 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지들에만 이 표면적인 냇물들이 없다.

에덴시아의 물을 비롯하여 비슷한 고안건축 구체들은 진화적인 행성들의 물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구체들의 물은 표면에 흐르는 동시에 지하에도 흐르며, 습기가 계속 순환한다. 에덴시아는 운반되는 주요 경로가 대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다양한 물 경로들을 따라 경작될 수 있다. 영 존재들은 구체의 표면 위를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반면, 물질적 존재들은 공중을 통행하여 움직이기 위해 물질적인 그리고 반(半) 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에덴시아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들에는 진짜 대기가 있는데, 그러한 고안건축의 창조계들의 특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3개-기체 혼합이며, 유란시아 대기의 두 요소를 체현하고 그리고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호흡에 맞는 모론시아 기체가 더

around each of these seventy worlds are about the size of Urantia. These 771 architectural spheres are quite comparable in size to those of other constellations.

43:0.3 (485.3) Edentia time reckoning and distance measurement are those of Salvington, and like the spheres of the universe capital,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are fully supplied with all orders of celestial intelligences. In general, these personalities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ose described in connection with the universe administration.

43:0.4 (485.4) The supervisor seraphim, the third order of local universe angel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constellations. They make their headquarters on the capital spheres and minister extensively to the encircling morontia-training worlds. In Norlatiadek the seventy major spheres, together with the seven hundred minor satellites, are inhabited by the univitalia, the permanent citizens of the constellation. All these architectural worlds are fully administered by the various groups of native life, for the greater part unrevealed but including the efficient spironga and the beautiful spornagia. Being the mid-point in the morontia-training regime, as you might suspect, the morontia life of the constellations is both typical and ideal.

1.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43:1.1 (485.5) Edentia abounds in fascinating highlands, extensive elevations of physical matter crowned with morontia life and overspread with spiritual glory, but there are no rugged mountain ranges such as appear on Urantia.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sparkling lakes and thousands upon thousands of interconnecting streams, but there are no great oceans nor torrential rivers. Only the highlands are devoid of these surface streams.

43:1.2 (486.1) The water of Edentia and similar architectural spheres is no different from the water of the evolutionary planets. The water systems of such spheres are both surface and subterranean, and the moisture is in constant circulation. Edentia can be circumnavigated via these various water routes, though the chief channel of transportation is the atmosphere. Spirit beings would naturally travel above the surface of the sphere, while the morontia and material beings make use of material and semimaterial means to negotiate atmospheric passage.

43:1.3 (486.2) Edentia and its associated worlds have a true atmosphere, the usual three-gas mixture which is characteristic of such architectural creations, and which embodies the two elements of Urantian atmosphere plus that morontia gas

해진다. 그러나 이 대기가 물질적인 동시에 모론시아적인 반면, 거기에는 폭풍이나 태풍이 없으며; 여름이나 겨울도 없다. 대기 불안과 계절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조된 이 세계들에서는 야외도 장식할 수 있다.

에덴시아의 고지들은 거대한 물리적 형태들을 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그 길이와 폭 전체에 많이 퍼져있는 생명의 끝없는 풍성함으로 장식되어 있다. 좀 고립된 약간의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이 고지들은 창조체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하나도 담고있지 않다. 물질적인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장식물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비교적 낮은 고지들은 특별한 거주민들의 집터이며 생물 그리고 모론시아 예술에 의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일곱 번째 고지 산맥의 정상에는 에덴시아의 부활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승하는 2차 변형 계층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깨어난다. 창조체 재조립이 일어나는 이 방들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에덴시아에 있는 접수 지역들 중 첫 번째 역시 (구원자별에 가까운 멜기세덱 행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활실들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승하는 변형된 계층의 필사자들이 재조립된다.

멜기세덱들 역시 에덴시아에 있는 특별한 두 대학들을 유지한다. 하나는 응급 학교인데, 사타니아 반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다른 하나는 증여 학교인데, 놀라시아 맥 세계들 중의 하나에서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적 증여를 일으켰던 사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달하는 일에 바치어져 있다. 두 번째의 이 대학은 거의 40,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미가엘이 유란시아가 자신의 최종 증여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알리자마자 세워졌다.

에덴시아의 접수 지역인 유리 바다는 행정-관리적 중심 근처에 있으며 본부 원형극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별자리 관련사들의 70개 분야들을 위한 통치 중심들이 있다. 에덴시아의 절반은 70개 삼각(三角) 부분들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선들은 그것들의 각각의 부분들의 본부 건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구체의 나머지는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 하느님의 동산들이다.

너희가 주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전체 행성을 너희가 검열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시간의 대부분은 너희의 현재 거주하는 세계의 그것과 숫자가 일치하는 행정-관리적 삼각지대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입법 회의에 관찰자로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거주자들에게 배정된 모론시아 지역은 36번째 삼각지에 자리한 최종자의 본부에 인접된 35번째 삼각지대의 중심부에

suitable for the respiration of morontia creatures. But while this atmosphere is both material and morontial, there are no storms or hurricanes; neither is there summer nor winter. This absence of atmospheric disturbances and of seasonal variation makes it possible to embellish all outdoors on these especially created worlds.

43:1.4 (486.3) The Edentia highlands are magnificent physical features, and their beauty is enhanced by the endless profusion of life which abounds throughout their length and breadth. Excepting a few rather isolated structures, these highlands contain no work of creature hands. Material and morontial ornamentations are limited to the dwelling areas. The lesser elevations are the sites of special residences and are beautifully embellished with both biologic and morontia art.

43:1.5 (486.4) Situated on the summit of the seventh highland range are the resurrection halls of Edentia, wherein awaken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secondary modified order of ascension. These chambers of creature reassembly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 first of the receiving spheres of Edentia (like the planet Melchizedek near Salvington) also has special resurrection halls, wherein the mortals of the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are reassembled.

43:1.6 (486.5) The Melchizedeks also maintain two special colleges on Edentia. One, the emergency school,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growing out of the Satania rebellion. The other, the bestowal school, is dedicated to the mastery of the new problems arising out of the fact that Michael made his final bestowal on one of the worlds of Norlatiadek. This latter college was established almost forty thousand years ago,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by Michael that Urantia had been selected as the world for his final bestowal.

43:1.7 (486.6) The sea of glass, the receiving area of Edentia, is near the administrative center and is encircled by the headquarters amphitheater. Surrounding this area are the governing centers for the seventy divisions of constellation affairs. One half of Edentia is divided into seventy triangular sections, whose boundaries converge at the headquarters buildings of their respective sectors. The remainder of this sphere is one vast natural park, the gardens of God.

43:1.8 (486.7) During your periodic visits to Edentia, though the entire planet is open to your inspection, most of your time will be spent in that administrative triangle whose number corresponds to that of your current residential world. You will always be welcome as an observer in the legislative assemblies.

43:1.9 (486.8) The morontia area assigned to ascending mortals resident on Edentia is located in the mid-zone of the thirty-fifth triangle adjoining

자리 잡고 있다. 유니비타시아의 일반 본부들은 모론시아 시민들의 거주 예정지에 바로 인접한 34번 제 삼각지대의 중앙-지역에 있는 거대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로 볼 때, 천상의 생명의 적어도 70개 주요 부분들의 조화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70개 삼각형 지역들 각각은 모론시아 훈련의 70개 주요 구체들 중 어떤 하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에덴시아 유리 바다는 둘레가 약 100마일에 이르고 깊이가 약 30마일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수정이다. 이 장엄한 수정은 모든 운송 세라핌천사들과 구체 밖의 지점들로부터 도착하는 다른 존재들을 위한 수신소 역할을 한다; 그러한 유리 바다는 운송 세라핌천사가 도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계층의 수정 마당은 거의 모든 고안권 축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장식하는 가치 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 되는데, 연관된 집단들에게 초우주 반영을 제시하는 일에 그리고 공간의 흐름들을 변형시키고 또 유입되고 있는 다른 물리적-에너지 흐름들을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변환 기법 안에서 한 요소로서 활용된다.

제 2 장. 별자리 정부

별자리들은 지역우주의 자율적인 단위들이며, 각각의 별자리는 그 자체의 입법 법령들에 따라서 관리-운영된다. 네바돈의 법정들이 우주 관련사들에 대한 제판을 벌일 때, 모든 내부 문제들은 대상이 되는 별자리에서 통용되는 법에 따라 판결된다. 구원자별의 이 사법 판결은 별자리들의 입법 법령들과 함께 지역 체계들의 관리-행정자들에 의해 실행된다.

별자리들은 그렇게 해서 입법 단위들로서 기능하는 반면, 지역체계들은 집행 또는 시행 단위들로서의 역할을 한다. 구원자별 정부는 최고 사법 그리고 조화-협동 기관이다.

최고 사법 기능이 지역우주의 중앙 관리-행정에 있는 반면, 보조적이지만 주요한 두 개의 법정 이 각 별자리의 본부, 멜기세덱 협의회 그리고 고자의 법원에 존재한다.

사법적인 모든 문제들은 멜기세덱들의 협의회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다. 진화하는 행성들과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특정한 필수적 체험을 이미 가졌던 이 계층 중에서 열 두 명이 증거를 검사하고 해명을 검토하며 잠정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을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s, situated in the thirty-sixth triangle.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univatatia occupies an enormous area in the mid-region of the thirty-fourth triangle immediately adjoining the residential reservation of the morontia citizens. From these arrangements it may be seen that provision is made for the accommodation of at least seventy major divisions of celestial life, and also that each of these seventy triangular areas is correlated with some one of the seventy major spheres of morontia training.

43:1.10 (487.9) The Edentia sea of glass is one enormous circular crystal about one hundred miles in circumference and about thirty miles in depth. This magnificent crystal serves as the receiving field for all transport seraphim and other beings arriving from points outside the sphere; such a sea of glass greatly facilitates the landing of transport seraphim.

43:1.11 (487.2) A crystal field on this order is found on almost all architectural worlds; and it serves many purposes aside from its decorative value, being utilized for portraying superuniverse reflectivity to assembled groups and as a factor in the energy-transformation technique for modifying the currents of space and for adapting other incoming physical-energy streams.

2.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43:2.1 (487.3) The constellations are the autonomous units of a local universe, each constellation being administered according to its own legislative enactments. When the courts of Nebadon sit in judgment on universe affairs, all internal matters are adjud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prevailing in the constellation concerned. These judicial decrees of Salvington, together with the legislative enactments of the constellations, are executed by the administrators of the local systems.

43:2.2 (487.4) Constellations thus function as the legislative or lawmaking units, while the local systems serve as the executive or enforcement units. The Salvington government is the supreme judicial and co-ordinating authority.

43:2.3 (487.5) While the supreme judicial function rests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there are two subsidiary but major tribunals at the headquarters of each constellation, the Melchizedek council and the court of the Most High.

43:2.4 (487.6) All judicial problems are first reviewed by the council of the Melchizedeks. Twelve of this order who have had certain requisite experience on the evolutionary planets an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orlds are empowered to review evidence, digest pleas, and formulate provisional

갖는데, 그것들은 지고자, 통치하는 별자리 아버지의 법정으로 전해진다. 후자(後者) 법정의 이 필사자 부서는 일곱 명의 판사들로 구성되는데, 그 모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다. 너희가 우주 안에서 점점 더 올라갈수록, 너희는 너희와 같은 종류인 그들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판결을 받는다.

별자리 입법부는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별자리의 입법 계획은 상승하는 자들의 비교적 낮은 의사당, 한 명의 최종자에 의해 주관되고 1,000명의 대표 필사자들로 구성된 한 집단에서 시작된다. 각각의 체계는 이 심의 기관 안에 소속될 10명의 성원들을 지명한다. 에덴시아에서는 이 기구가 현재 충분히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입법부 의원들의 중앙-집무실은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다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단의 총원은 100명이며 별자리 안에서 기능할 때 그러한 존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주관하는 감독하는 개인성들에 의해 지명된다.

별자리 입법부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기관 또는 최고 기관은 동료들의 의사당—신성한 아들들의 의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지고자 아버지들 그리고 10번에 의해 선택된다. 오직 특별한 체험을 가진 아들들만이 이 상원(上院)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 회의의 두 하부 부서들 모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사실-발견 그리고 시간절약 집단이다.

입법부 의원들의 병합된 협의회는 별자리 심의기관의 독립된 이들 지부들로부터 온 세 명의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치하는 하위(下位) 지고자에 의해 주관된다. 이 집단은 모든 법령의 최종 형식을 인가하며 방송자들에 의한 그것들의 공표를 허락한다. 이 최고위원회의 허락은 입법된 법령들이 영역의 법이 되게 한다; 그들의 활동은 최종적이다. 에덴시아의 입법 선언들은 놀라시아 텍 전체의 기초적 법을 구성한다.

제 3 장.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

별자리들의 통치자들은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보론다텍 계층에 속한다. 우주 안에서 별자리 통치자들로서 또는 다른 것들로서 활동적인 임무에 임명될 때, 이 아들들은 지고자들로 알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최고의 행정-관리적 지혜를 체현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지역우주 아들들의 모든 다른 계층들의 가장 멀리 내다보고 지능적인 충성심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개인적 고결한-순수성과 그들의 집단 충성심은 한 번도 의심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보론다텍 아들들에 대한 불만이 네바돈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텍 아들들은 가브리엘

verdicts, which are passed on to the court of the Most High, the reigning Constellation Father. The mortal division of this latter tribunal consists of seven judges, all of whom are ascendant mortals. The higher you ascend in the universe, the more certain you are to be judged by those of your own kind.

43:2.5 (487.7) The constellation legislative body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legislative program of a constellation originates in the lower house of ascenders, a group presided over by a finaliter and consisting of one thousand representative mortals. Each system nominates ten members to sit in this deliberative assembly. On Edentia this body is not fully recruited at the present time.

43:2.6 (487.8) The mid-chamber of legislators is composed of the seraphic hosts and their associates, other children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is group numbers one hundred and is nominated by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who preside over the various activities of such beings as they function within the constellation.

43:2.7 (488.1) The advisory or highest body of constellation legislators consists of the house of peers — the house of the divine Sons. This corps is chosen by the Most High Fathers and numbers ten. Only Sons of special experience may serve in this upper house. This is the fact-finding and timesaving group which very effectively serves both of the lower division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43:2.8 (488.2) The combined council of legislators consists of three members from each of these separate branches of the constellation deliberative assembly and is presided over by the reigning junior Most High. This group sanctions the final form of all enactments and authorizes their promulgation by the broadcasters. The approval of this supreme commission renders legislative enactments the law of the realm; their acts are final. The legislative pronouncements of Edentia constitute the fundamental law of all Norlatiadek.

3.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3:3.1 (488.3) The rulers of the constellations are of the Vorondadek order of local universe sonship. When commissioned to active duty in the universe as constellation rulers or otherwise, these Sons are known as the *Most Highs* since they embody the highest administrative wisdom, coupled with the most farseeing and intelligent loyalty, of all the orders of the Local Universe Sons of God. Their personal integrity and their group loyalty have never been questioned; no disaffection of the Vorondadek Sons has ever occurred in Nebadon.

43:3.2 (488.4) At least three Vorondadek Sons are

에 의해 네바돈 별자리들 각각의 지고자로서 임명되어 있다. 이 세 명 중에서 주관하는 성원은 별자리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두 연관-동료들은 선임 지고자와 후임 지고자로 알려져 있다. 별자리 아버지는 표준시간으로 10,000년 동안 통치하는데(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0,000년), 그 전에 같은 기간 동안 후임 동료로서 그리고 선임 동료로서 봉사한 적이 있다.

시편 기자는 에덴시아가 세 명의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 통치되었던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통치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하였다: “하나의 강이 흐르고 그 물줄기들은 하느님의 도성, 지고자들의 장막들의 가장 거룩한 곳을 찬란하게 장식할 것이다.”

여러 시대들이 흐르는 동안 유란시아에서는 다양한 우주 통치자들에 대해 큰 혼동이 있어 왔다. 후대의 많은 선생들은 그들이 가진 희미하고도 불분명한 부족 신(神)들을 지고자 아버지들과 혼동하였다. 더욱 후대에, 히브리인들은 이 천상의 통치자들을 하나의 혼합된 신(神)으로 섞어 버렸다. 한 선생은 지고자들이 최극 통치자들이 아닌 것을 납득하였으며, 그래서 그는 “지고자의 비밀한 장소에 거하는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란시아의 기록들 안에서는 “지고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매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를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는 “그 지고자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며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하였다.

별자리 아버지들은 거주하는 행성의 개별존재들에게는 거의 연관하지 않지만,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모든 필사 종족과 국가 집단에 관해 매우 깊이 관여하는 별자리들의 입법(立法)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한다.

비록 별자리 체제가 너희와 우주 관리-행정 사이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개별존재로서의 너희는 대개 별자리 정부와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큰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체계, 사타니아에 중심을 둘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란시아는 별자리 통치자들에게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체계와 행성의 상태가 루시퍼 반란으로부터 조성되기 때문이다.

에덴시아 지고자들은 루시퍼 분리가 일어났을 때 반역한 세계들에서의 행성 권한의 특정한 위상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이 힘을 계속 발휘해왔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오래 전부터 이 불안정한 세계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이 독점권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이 확립된 권한권을 의심할 여지없이 계속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대부분은 대개 충성스러운 체계에서는 체계 주관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유란시아가 지고자들에게 특별히 관

commissioned by Gabriel as the Most Highs of each of the Nebadon constellations. The presiding member of this trio is known as the *Constellation Father* and his two associates as the *senior Most High* and the *junior Most High*. A Constellation Father reigns for ten thousand standard years (about 50,000 Urantia years), having previously served as junior associate and as senior associate for equal periods.

43:3.3 (488.5) The Psalmist knew that Edentia was ruled by three Constellation Fathers and accordingly spoke of their abode in the plural: “There is a river, the streams whereof shall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most holy place of the tabernacles of the Most Highs.”

43:3.4 (488.6) Down through the ages there has been great confusion on Urantia regarding the various universe rulers. Many later teachers confused their vague and indefinite tribal deities with the Most High Fathers. Still later, the Hebrews merged all of these celestial rulers into a composite Deity. One teacher understood that the Most Highs were not the Supreme Rulers, for he said,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In the Urantia records it is very difficult at times to know exactly who is referred to by the term “Most High.” But Daniel fully understood these matters. He said,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soever he will.”

43:3.5 (488.7) The Constellation Fathers are little occupied with the individuals of an inhabited planet, but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ose legislative and lawmaking functions of the constellations which so greatly concern every mortal race and national group of the inhabited worlds.

43:3.6 (489.1) Although the constellation regime stands between you and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s individuals you would ordinarily be little concerned with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Your great interest would normally center in the local system, Satania; but temporarily, Urantia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ellation rulers because of certain system and planetary conditions growing out of the Lucifer rebellion.

43:3.7 (489.2) The Edentia Most Highs seized certain phases of planetary authority on the rebellious worlds at the time of the Lucifer secession. They have continued to exercise this power, and the Ancients of Days long since confirmed this assumption of control over these wayward worlds. They will no doubt continue to exercise this assumed jurisdiction as long as Lucifer lives. Much of this authority would ordinarily, in a loyal system, be invested in the System Sovereign.

43:3.8 (489.3) But there is still another way in which

런된 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이 그의 최종 증여 임무에 들어갔을 때, 루시퍼의 후임자가 지역체계에서 충분한 권한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가엘 증여와 관련된 모든 유란시아 관련사들은 놀라시아택의 지고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관리되었다.

제 4 장. 산상 집회—충심으로 늘 계신이

가장 거룩한 집회 동산은 충심으로 늘 계신이, 에덴시아에서 기능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표자의 거주지이다.

이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아들이며 본부 세계가 창조된 이래 임마누엘의 직접적인 대표자로서 에덴시아에 제시되어 왔다.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들의 오른편에 항상 있지만, 요청되지 않는 한에는 결코 충고를 제시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높은 아들들은 그러한 권역들의 활동하는 통치자들의 청원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우주의 관련사들을 수행하는 일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창조자 아들과 상관되고,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의 지고자와 상관된다.

에덴시아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거주지는 특별 우주 통신 그리고 지성의 파라다이스 체계의 별자리 중앙이다. 이 삼위일체 아들들은, 하보나 그리고 파라다이스 개인성들로 구성된 그들의 참모들과 함께, 감독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와 연락하여, 우주들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계층과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통신을 유지한다.

최고 거룩 산은 멋지고 아름답고 기묘하게 꾸며져 있지만, 파라다이스 아들의 실제적인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중앙 거주지와 보론다택 아들들의 거주 설비를 포함하는 주변의 70개 구조물들과 비교하기에 알맞다. 이 설비들은 오로지 거주지로서만 사용된다; 그것들은 별자리의 관련사들이 처리되는 광대한 행정-관리적 본부 건물들과 전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에덴시아에 있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의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이 거주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파라다이스 집회의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보나의 10억 개 완성 세계들을 통하여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향하여 진보하는 필사자들의 길고도 흥미 있는 여행에 대해 이 파라다이스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헌납된 이 고지대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인다. 그리고 모론시아 필사자들이 중앙우

Urantia became peculiarly related to the Most Highs. When Michael, the Creator Son, was on his terminal bestowal mission, since the successor of Lucifer was not in full authority in the local system, all Urantia affairs which concerned the Michael bestowal were immediately supervised by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4. MOUNT ASSEMBLY—THE FAITHFUL OF DAYS

43:4.1 (489.4) The most holy mount of assembly is the dwelling place of the Faithful of Days,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who functions on Edentia.

43:4.2 (489.5) This Faithful of Days is a Trinity Son of Paradise and has been present on Edentia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Immanuel since the creation of the headquarters world. Ever the Faithful of Days stands at the right hand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to counsel them, but never does he proffer advice unless it is asked for. The high Sons of Paradise never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except upon the petition of the acting rulers of such domains. But all that a Union of Days is to a Creator Son, a Faithful of Days is to the Most Highs of a constellation.

43:4.3 (489.6) The residence of the Edentia Faithful of Days is the constellation center of the Paradise system of extrauniverse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These Trinity Sons, with their staffs of Havona and Paradise personalities, in liaison with the supervising Union of Days, are in direct and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ir order throughout all the universes, even to Havona and Paradise.

43:4.4 (489.7) The most holy mount is exquisitely beautiful and marvelously appointed, but the actual residence of the Paradise Son is modest in comparison with the central abode of the Most Highs and the surrounding seventy structures comprising the residential unit of the Vorondadek Sons. These appointments are exclusively residential; they are entirely separate from the extensiv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buildings wherein the affairs of the constellation are transacted.

43:4.5 (489.8) The residence of the Faithful of Days on Edentia is located to the north of these residences of the Most Highs and is known as the “mount of Paradise assembly.” On this consecrated highland the ascending mortals periodically assemble to hear this Son of Paradise tell of the long and intriguing journey of progressing mortals through the one billion perfection worlds of Havona and on to the indescribable delights of

주 안에서 기원된 다양한 집단의 개인성들과 더욱 충만하게 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산상 집회의 이 특별한 모임에서이다.

한 때 사타니아의 주권자였던 불충한 루시퍼는, 증가되는 관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면서, 지역우주의 정부 계획안에 모든 우월한 계층의 아들 관계를 제거시키려고 꾀하였다. 그는 가슴속으로 결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보좌를 하느님의 아들들 위로 승진시킬 것이다; 나는 북쪽의 집회 동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나는 지고자와 같이 되겠다.”

100명의 체계 주권자들은 별자리의 복지에 대해 숙고하는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한다. 사타니아 반역 이후에 예루셈의 최고의 반역들은 그것들이 전에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시아 협의회에 늘 맡겨졌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 네바돈 전체에 걸친 무제한적 주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는 이 오만한 뻔뻔스러운 행위를 멈출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로, 이 죄의 선동자들은 지역체계 주권자들의 에덴시아 협의회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옛날 선생들이 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지고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날이 있었고, 사탄 역시 와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그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실적인 설명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후로, 놀라시아텍 전체에서는 죄와 반란이 제거되었다. 미가엘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 얼마 전에, 몰락한 루시퍼의 동료인 사탄은 그러한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참여하려고 꾀하였지만, 대반역자를 반대하는 정서의 응결이, 동정심의 문들을 거의 보편적으로 닫아버려서 사타니아 반대자들이 설 자리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악을 받아들이는 열린 문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죄를 즐기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 에덴시아의 가슴의 문들이 사탄에게 반대하여 닫혔으며; 그는 연관된 체계 주권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거부되었으며, 사람의 아들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루시퍼의 반란 이후로 하나의 새로운 구조가 중심으로 늘 계신이의 주거지 가까이 제공되었다. 이 임시 건물은 지고자 연락관의 본부인데, 그는 파라다이스 아들과 가깝게 연락하면서, 죄와 반역에 대한 시대의 명령의 정책과 태도에 관하여 모든 문제들에서 별자리 정부에 대한 충고자로서 기능한다.

Paradise. And it is at these special gatherings on Mount Assembly that the morontia mortals become more fully acquainted with the various groups of personalities of origin in the central universe.

43:4.6 (490.1) The traitorous Lucifer, onetime sovereign of Satania, in announcing his claims to increased jurisdiction, sought to displace all superior orders of sonship in the governmental plan of the local universe. He purposed in his heart, saying: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ons of God; I will sit upon the mount of assembly in the north;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43:4.7 (490.2) The one hundred System Sovereigns come periodically to the Edentia conclaves which deliberate on the welfare of the constellation. After the Satania rebellion the archrebels of Jerusem were wont to come up to these Edentia councils just as they had on former occasions. And there was found no way to stop this arrogant effrontery until after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and his subsequent assumption of unlimited sovereignty throughout all Nebadon. Never, since that day, have these instigators of sin been permitted to sit in the Edentia councils of the loyal System Sovereigns.

43:4.8 (490.3) That the teachers of olden times knew of these things is shown by the record: “And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Most Highs, and Satan came also and presented himself among them.” And this is a statement of fact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in which it chances to appear.

43:4.9 (490.4) Since the triumph of Christ, all Norlatiadek is being cleansed of sin and rebels. Sometime before Michael's death in the flesh the fallen Lucifer's associate, Satan, sought to attend such an Edentia conclave, but the solidification of sentiment against the archrebels had reached the point where the doors of sympathy were so well-nigh universally closed that there could be found no standing ground for the Satania adversaries. When there exists no open door for the reception of evil, there exists no opportunity for the entertainment of sin. The doors of the hearts of all Edentia closed against Satan; he was unanimously rejected by the assembled System Sovereigns, and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Son of Man “beheld Satan fall as lightning from heaven.”

43:4.10 (490.5) Since the Lucifer rebellion a new structure has been provided near the residence of the Faithful of Days. This temporary edifice is the headquarters of the Most High liaison, who functions in close touch with the Paradise Son as adviser to the constellation government in all matters respecting the policy and attitude of the order of Days toward sin and rebellion.

제 5 장. 루시퍼 반란 이후의 에덴시아 아버지들

5. THE EDENTIA FATHERS SINCE THE LUCIFER REBELLION

에덴시아에서의 지고자들의 교대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중지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때 근무하던 동일한 통치자들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통치자들이 루시퍼 그리고 그의 연관-동료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아무튼, 별자리의 현 정부는 보론다텍 계층의 12 아들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어 왔다. 이 12 명은 다음과 같다:

1. 별자리 아버지. 놀라시아텍의 현 지고자 통치자는 네바돈의 보론다텍 계열의 617,318번이다. 그는 자신의 에덴시아 임무들을 맡기 전에 우리 지역우주에 두루 많은 별자리들에서 봉사하였다.

2. 선임 지고자 연관-동료.

3. 후임 지고자 연관-동료.

4. 지고자 충고자, 미가엘이 주(主) 아들의 지위를 달성한 이후 그의 직접적인 대표자.

5. 지고자 집행자, 루시퍼 반란 이후로 계속 에덴시아에 주둔한 가브리엘의 개인적 대표자.

6. 지고자 행정 관찰자들의 우두머리,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에 주둔한 보론다텍 관찰자들의 지도자.

7. 지고자 심판관, 별자리 안에서 반란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조절하는 의무를 떠맡은 보론다텍 아들.

8. 지고자 응급 관리행정자, 사타니아의 반역-고립 세계들에게 놀라시아텍 입법부의 응급 법령을 적용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론다텍 아들.

9. 지고자 중개인, 별자리의 일상적인 관리-행정과 유란시아에 대한 특별 증여 조절들을 조화시키도록 배정된 보론다텍 아들. 특징의 천사장 활동들과 유란시아에서의 수많은 다른 불규칙한 직무들의 현존은, 예루셈에서의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별 활동들과 함께, 이 아들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10. 지고자 법무관, 사타니아 반역에 따라 일어난 혼란이 증대하는 놀라시아텍의 특별 문제들에 대한 조절에 헌신하는 응급 법정의 우두머리.

43:5.1 (490.6) The rotation of the Most Highs on Edentia was suspend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We now have the same rulers who were on duty at that time. We infer that no change in these rulers will be made until Lucifer and his associates are finally disposed of.

43:5.2 (490.7) The present government of the constellation, however,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welve Sons of the Vorondadek order. These twelve are as follows:

43:5.3 (490.8) 1. The Constellation Father. The present Most High ruler of Norlatiadek is number 617,318 of the Vorondadek series of Nebadon. He saw service in many constellations throughout our local universe before taking up his Edentia responsibilities.

43:5.4 (490.9) 2. The senior Most High associate.

43:5.5 (491.1) 3. The junior Most High associate.

43:5.6 (491.2) 4. The Most High adviser,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Michael since his attainment of the status of a Master Son.

43:5.7 (491.3) 5. The Most High executive,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Gabriel stationed on Edentia ever since the Lucifer rebellion.

43:5.8 (491.4) 6. The Most High chief of planetary observers, the director of the Vorondadek observers stationed on the isolated worlds of Satania.

43:5.9 (491.5) 7. The Most High referee, the Vorondadek Son intrusted with the duty of adjusting all difficulties consequential to rebellion within the constellation.

43:5.10 (491.6) 8. The Most High emergency administrator, the Vorondadek Son charged with the task of adapting the emergency enactments of the Norlatiadek legislature to the rebellion-isolated worlds of Satania.

43:5.11 (491.7) 9. The Most High mediator, the Vorondadek Son assigned to harmonize the special bestowal adjustments on Urantia with the routin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 The presence of certain archangel activities and numerous other irregular ministrations on Urantia, together with the special activiti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n Jerusem, necessitates the functioning of this Son.

43:5.12 (491.8) 10. The Most High judge-advocate, the head of the emergency tribunal devoted to the adjustment of the special problems of Norlatiadek growing out of the confusion consequent upon the Satania rebellion.

11. 지고자 연락자, 에덴시아 통치자들에게 배정되었지만 반역과 창조제 불충성에 관계된 문제들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에 관하여 충심으로 늘 계신이와 함께 특별한 조인자로서 임명된 보론다텍 아들.

12. 지고자 관리인, 에덴시아의 응급 협의회 회장. 사타니아 동란으로 인하여 놀라시아텍에 배정된 모든 개인성들은 응급 협의회에 소속되며, 그들을 주관하는 관리는 비상한 체험을 가진 보론다텍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보론다텍들, 네바돈의 사절(使節)들, 그리고 에덴시아에 역시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루시퍼 반란 이후로 항상 에덴시아 아버지들은 유란시아 그리고 사타니아의 다른 고립된 세계들을 특별하게 돌보아 왔다. 오래 전에 그 선지자는 국가들의 관련사에 있어서 별자리 아버지들의 통제하는 손을 감지하였다. “지고자가 국가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나누어 줄 때, 그가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킬 때, 그는 민족의 경계선을 두었다.”

모든 격리되거나 고립된 세계는 관찰자로서 활동하는 보론다텍 아들을 갖는다. 그는 국가들의 관련사에 개입하도록 별자리 아버지에게 의해 명령 받은 때 외에는 행정 관리·행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왕국에서 통치하는”이는 이 지고자 관찰자이다. 유란시아는 놀라시아텍의 고립된 세계들 중 하나이며, 한 명의 보론다텍 관찰자가 칼리가스티아 반역 이후로 항상 행성에 주둔해 왔다. 마키벤타 멜기세텍이 유란시아에서 반(半) 물질적인 형태에서 사명활동 하였을 때, 그는 그때의 임무에 대해 지고자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하였는데,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살렘의 왕인 멜기세텍은 지고자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텍은 그가 “그리고 너희 적들을 너희 손에 넘긴 지고자에게 복이 있으라.”고 했을 때 이 지고자 관찰자와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었다.

제 6 장. 하느님의 동산

체계 수도들은 물질적 구조물들과 광물 구조물들로 특별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우주 본부는 영적인 영광이 더욱 반영되어 있지만, 별자리들의 수도들은 모론시아 활동들과 살아있는 최고의 장식물들 중 최고의 수준이다. 별자리 본부 세계들에서는 살아있는 장식물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세계들이 “하느님의 동산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생명의 이 우수성—식물 예술—때문이다.

에덴시아의 약 절반은 지고자들의 절묘한 동

43:5.13 (491.9) 11. The Most High liaison, the Vorondadek Son attached to the Edentia rulers but commissioned as a special counselor with the Faithful of Days regarding the best course to pursue in the management of problems pertaining to rebellion and creature disloyalty.

43:5.14 (491.10) 12. The Most High director, the president of the emergency council of Edentia. All personalities assigned to Norlatiadek because of the Satania upheaval constitute the emergency council, and their presiding officer is a Vorondadek Son of extraordinary experience.

43:5.15 (491.11) And this takes no account of the numerous Vorondadeks, envoys of Nebadon constellations, and others who are also resident on Edentia.

43:5.16 (491.12) Ever since the Lucifer rebellion the Edentia Fathers have exercised a special care over Urantia and the other isolated worlds of Satania. Long ago the prophet recognized the controlling hand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the affairs of nations. “When the Most High divided to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separated the sons of Adam, he set the bounds of the people.”

43:5.17 (491.13) Every quarantined or isolated world has a Vorondadek Son acting as an observer. He does not participate in planetary administration except when order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the nations. Actually it is this Most High observer who “rules in the kingdoms of men.” Urantia is one of the isolated worlds of Norlatiadek, and a Vorondadek observer has been stationed on the planet ever since the Caligastia betrayal. When Machiventa Melchizedek ministered in semimaterial form on Urantia, he paid respectful homage to the Most High observer then on duty, as it is written,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was the priest of the Most High.” Melchizedek revealed the relations of this Most High observer to Abraham when he said, “And blessed be the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

6. THE GARDENS OF GOD

43:6.1 (492.1) The system capitals are particularly beautified with material and mineral constructions, while the universe headquarters is more reflective of spiritual glory, but the capitals of the constellations are the acme of morontia activities and living embellishment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living embellishment is more generally utilized, and it is this preponderance of life — botanic artistry — that causes these worlds to be called “the gardens of God.”

43:6.2 (492.2) About one half of Edentia is devoted to

산들로 정해져 있으며, 이 동산들은 지역우주의 가장 증진된 모론시아 창조체들에 속한다. 이것은 놀라시아텍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유별나게 아름다운 장소들이 왜 종종 “에덴동산”이라고 불리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장엄한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지고자들의 경배 회당이다.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음이 분명한데,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지고자들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깨끗한 손과 순수한 가슴을 가진 자, 자기 혼을 허영심에 들뜨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맹세하지도 않은 자가 아니냐.” 이 성소에서 지고자들은 이완-휴식에서의 10일 제마다 에덴시아 전체가 최극자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넘치는 깊은 사색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고안건축의 세계들은 물질적 계층의 생명의 10가지 형태들을 향유한다. 유란시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이 있지만, 에덴시아와 같은 그러한 세계에는 물질적 계층의 생명의 10가지 분야들이 있다. 에덴시아 생명의 이 10가지 분야들을 너희가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아마 곧 처음 세 가지를 식물로 마지막 세 가지를 동물로 분류하겠지만, 너희는 풍부하고 매혹적인 네 가지 형태의 중간에 있는 생명의 본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동물 생명으로 구분된 것들조차도 진화적인 세계들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인데,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창조체들의 독특한 성격과 매혹적인 본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아주 불가능하다. 너희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수많은 살아있는 창조체들이 그곳에 있다. 전체의 동물 창조는 진화하는 행성들의 전체 동물 종류들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계층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 생명은 가장 지능적이고 정교하게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이 종자들은 놀랄 정도로 온유하고 감동적으로 친근하다. 그러한 고안건축의 세계들에는 육식 창조체들이 없으며; 에덴시아 전체에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무섭게 할 만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물 역시 유란시아의 그것과 매우 다른데,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적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인 성장은 특유의 녹색 특징을 갖지만, 식물 생명에 해당하는 모론시아는 다양한 빛깔과 반영을 갖는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이다. 그러한 모론시아 식물은 순전히 에너지 성장이다; 먹었을 때 남는 부분이 없다.

물질적 생명의 10가지 부분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는데, 모론시아 변종들은 물론이고, 이 고안건축의 세계들은 물질 그리고 모론시아 구조들의 생물학적 아름다움과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식물 장식과 생물학적 장식의 이 거대한 작업에 있어서 천상의 거장들이 원주민 스포르나기아들을 지도한다. 너희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활성화(活性)이 없는 물감과 생명이 없는 대리석을 소재로

the exquisite gardens of the Most Highs, and these gardens are among the most entrancing morontia creations of the local universe. This explains why the extraordinarily beautiful places on the inhabited worlds of Norlatiadek are so often called “the garden of Eden.”

43:6.3 (492.3) Centrally located in this magnificent garden is the worship shrine of the Most Highs. The Psalmist must have known something about these things, for he wrote: “Who shall ascend the hill of the Most Highs? Who shall stand in this holy place?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vanity nor sworn deceitfully.” At this shrine the Most Highs, on every tenth day of relaxation, lead all Edentia in the worshipful contemplation of God the Supreme.

43:6.4 (492.4) The architectural worlds enjoy ten forms of life of the material order. On Urantia there is plant and animal life, but on such a world as Edentia there are ten divisions of the material orders of life. Were you to view these ten divisions of Edentia life, you would quickly classify the first three as vegetable and the last three as animal, but you would be utterly unable to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intervening four groups of prolific and fascinating forms of life.

43:6.5 (492.5) Even the distinctively animal lif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volutionary worlds, so different that it is quite impossible to portray to mortal minds the unique character and affectionate nature of these nonspeaking creatures.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living creatures which your imagination could not possibly picture. The whole animal creation is of an entirely different order from the gross animal species of the evolutionary planets. But all this animal life is most intelligent and exquisitely serviceable, and all the various species are surprisingly gentle and touchingly companionable. There are no carnivorous creatures on such architectural worlds; there is nothing in all Edentia to make any living being afraid.

43:6.6 (492.6) The vegetable life is also very different from that of Urantia, consisting of both material and morontia varieties. The material growths have a characteristic green coloration, but the morontia equivalents of vegetative life have a violet or orchid tinge of varying hue and reflection. Such morontia vegetation is purely an energy growth; when eaten there is no residual portion.

43:6.7 (492.7) Being endowed with ten divisions of physical life, not to mention the morontia variations, these architectural worlds provide tremendous possibilities for the biologic beautification of the landscape and of the material and the morontia structures. The celestial artisans direct the native spornagia in this extensive work of botanic decoration and biologic embellishment. Whereas your artists must resort to inert paint and

삼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천상의 거장들과 유니비타시아들은 그들의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이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생명이 있는 물질들을 더 자주 활용한다.

만일 너희가 유란시아의 꽃들과 화초들과 나무들을 즐긴다면,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천상의 동산의 아름다운 식물과 장관을 이룬 꽃들로 너희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상의 세계들의 이러한 아름다움에 관한 적합한 개념을 필사자 마음에 전달할 수 있는 설명을 할 힘이 내게는 없다. 정말로 필사자-상승 모험여행을 하는 너희가 이 세계들에 도착하기 전에는 눈으로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없다.

제 7 장. 유니비타시아

유니비타시아는 에덴시아와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 그들의 감독을 받는 별자리 본부를 감싸는 770개 세계들 전체의 영원한 시민이다.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의 이 자녀들은 물질적 상태와 영적 상태 사이에 실존하는 평면에 구체적으로 투사되지만,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체들이 아니다. 에덴시아의 70개 주요 구체들 각각의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눈에 보이는 형태들을 가지며,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그들이 1번 세계로부터 70번 세계로 연속적으로 옮겨감에 따라 한 에덴시아 구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니비타시아의 상승하는 크기에 따라 조율된 모론시아 형태들을 갖는다.

영적으로는 유니비타시아가 비슷비슷 하지만; 지적으로는 필사자가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르며; 형태적으로는 그들이 모론시아 실존 상태와 비슷하고, 70개의 다양한 계층의 개인성으로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유니비타시아의 이 계층들 각각은 지적 활동의 10개 대(大)변이들을 나타내며, 이 다양한 지적 유형들 각각은 주요 에덴시아 세계들 각각 주변을 도는 10개 위성들 중 어떤 하나에 있는 진보하는 직업적 또는 실천적 사회화구현의 특별 훈련과 문화의 학교들을 주관한다.

이 700개 소(小) 세계들은 전체 지역우주의 활동 속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하는 기술적 구체며 모든 종류의 지능 존재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특별한 기술과 기술 지식을 훈련하는 이 학교들은 모론시아 학생들이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 중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해 배타적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너희가 사회적 문화의 70개 대(大) 세계들 중 어느 하나에 받아들여질 때, 너희에게는 주변을 도는 10개 위성들 각각에 착륙할 수 있는 허가서가 즉시 주어진다.

다양한 우대거류민단 안에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복귀 지도자들 사이에 눈에 띄게

lifeless marble to portray their concepts,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 univitatia more frequently utilize living materials to represent their ideas and to capture their ideals.

^{43:6.8 (493.1)} If you enjoy the flowers, shrubs, and trees of Urantia, then will you feast your eyes upon the botanical beauty and the floral grandeur of the supernal gardens of Edentia. But it is beyond my powers of description to undertake to convey to the mortal mind an adequate concept of these beauties of the heavenly worlds. Truly, eye has not seen such glories as await your arrival on these worlds of the mortal-ascension adventure.

7. THE UNIVITATIA

^{43:7.1 (493.2)} Univitatia are the permanent citizens of Edentia and its associated worlds, all seven hundred seventy worlds surrounding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being under their supervision. These children of the Creator Son and the Creative Spirit are projected on a plane of existence i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but they are not morontia creatures. The natives of each of the seventy major spheres of Edentia possess different visible forms, and the morontia mortals have their morontia forms attuned to correspond with the ascending scale of the univitatia each time they change residence from one Edentia sphere to another as they pass successively from world number one to world number seventy.

^{43:7.2 (493.3)} Spiritually, the univitatia are alike; intellectually, they vary as do mortals; in form, they much resemble the morontia state of existence, and they are created to function in seventy diverse orders of personality. Each of these orders of univitatia exhibits ten major variat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and each of these varying intellectual types presides over the special training and cultural schools of progressive occupational or practical socialization on some one of the ten satellites which swing around each of the major Edentia worlds.

^{43:7.3 (493.4)} These seven hundred minor worlds are technical spheres of practical education in the working of the entire local universe and are open to all classes of intelligent beings. These training schools of special skill and technical knowledge are not conducted exclusively for ascending mortals, although morontia students constitute by far the largest group of all those who attend these courses of training. When you are received on any one of the seventy major worlds of social culture, you are immediately given clearance for each of the ten surrounding satellites.

^{43:7.4 (493.5)} In the various courtesy colonies, ascending morontia mortals predominate among

되지만, 유니비타시아는 천상의 거장으로 구성된 네바돈 무리단과 연관된 가장 큰 집단을 대변한다. 오르본톤 전체에서 유버사 아반돈터들을 제외한 하보나-이외 어떤 존재도 기능적 기술과 사회적 적응력 그리고 조화-협동하는 솜씨에 있어서 유니비타시아와 같을 수 없다.

이들 별자리의 시민들은 거장 부대의 실제적인 성원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든 집단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며 변천하는 문화의 장대한 기술적 가능성들의 실현을 위해 별자리 세계들을 주요 구체들을 만드는 일에 많이 기여한다. 그들은 별자리 본부 세계들의 제한을 넘어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제 8 장. 에덴시아 훈련 세계

에덴시아의 물리적 자질과 그 주변을 도는 구체들은 거의 완전하다; 그것들은 구원자별의 구체들의 영적인 장엄함과 전혀 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예루셈의 훈련 세계들의 영광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 에덴시아 구체들 전체는 우주적 공간 흐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며, 물질적인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그들의 거대한 힘 체계들은 별자리 중심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감독되고 배급되는데, 주(主)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유능한 무리단의 도움을 받는다.

필사자 상승의 에덴시아 시기와 연관된 변형 모론시아 문화의 70개 훈련 세계들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종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안정된 기간이다; 이것은 실제로 전형적인 모론시아 삶이다. 너희가 한 주요 문화 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다시-맞추어지는 반면, 너희는 동일한 모론시아 육신을 유지하며, 개인성 무의식의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에덴시아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구체들에서 머무는 기간은 주로 집단 윤리, 지능적 개인성들의 다양한 우주 그리고 초우주 계층들 사이의 윤희하면서 유익한 상호관계의 비밀을 숙달하는 일로 보내어진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진화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통일을 완성한다; 체계 수도에서는 예루셈 시민권을 획득하고 집단 활동들과 조화-협동하는 일들을 단련하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 이제 별자리 훈련 세계들에서는 너희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개인성의 실제적인 사회화를 성취하게 된다. 숭고한 이 문화적 습득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는 데에 있다:

1. 10명의 다양한 동료 모론시아인들과 행복하게 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반면, 그러한 10개

the reversion directors, but the univitatia represent the largest group associated with the Nebadon corps of celestial artisans. In all Orvonton no extra-Havona beings excepting the Uversa abandoners can equal the univitatia in artistic skill, social adaptability, and co-ordinating cleverness.

43:7.5 (493.6) These citizens of the constellation are not actually members of the artisan corps, but they freely work with all groups and contribute much to making the constellation worlds the chief spher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magnificent artistic possibilities of transition culture. They do not function beyond the confines of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8. THE EDENTIA TRAINING WORLDS

43:8.1 (493.7) The physical endowment of Edentia and its surrounding spheres is well-nigh perfect; they could hardly equal the spiritual grandeur of the spheres of Salvington, but they far surpass the glories of the training worlds of Jerusem. All these Edentia spheres are energized directly by the universal space currents, and their enormous power systems, both material and morontial, are expertly supervised and distributed by the constellation centers, assisted by a competent corps of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Morontia Power Supervisors.

43:8.2 (494.1) The time spent on the seventy training worlds of transition morontia culture associated with the Edentia age of mortal ascension, is the most settled period in an ascending mortal's career up to the status of a finaliter; this is really the typical morontia life. While you are re-keyed each time you pass from one major cultural world to another, you retain the same morontia body, and there are no periods of personality unconsciousness.

43:8.3 (494.2) Your sojourn on Edentia and its associated spheres will be chiefly occupied with the mastery of group ethics, the secret of pleasant and profitabl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universe and superuniverse orders of intelligent personalities.

43:8.4 (494.3) On the mansion worlds you completed th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mortal personality; on the system capital you attained Jerusem citizenship and achieved the willingness to submit the self to the disciplines of group activities and co-ordinated undertakings; but now on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you are to achieve the real socialization of your evolving morontia personality. This supernal cultural acquirement consists in learning how to:

43:8.5 (494.4) 1. Live happily and work effectively with ten diverse fellow morontians, while ten such groups are associated in companies of one

집단들이 100개의 연대로 연관되고 그 다음에는 1,000개의 무리단 안에서 연맹을 이룬다.

2. 지적으로는 모론시아 존재들과 비슷하더라도 다른 모든 면에서는 매우 다른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기쁘게 거하고 진심으로 협동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이 다른 10개 무리들과 조화-협동할 때 10명의 이 집단과 함께 기능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1,000명의 유니비타시아의 무리단안으로 차례로 연방을 이룬다.

3. 동료 모론시아인들 그리고 이들 주인인 유니비타시아 둘 모두에 대한 동시적 조절을 성취하는 것. 지능 창조체들의 어느 정도 다른 집단과 연관하여 긴밀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의 계층의 존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4. 너희 자신과 비슷한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존재들과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연관된 두 집단들과의 지적 조화를 성취하기 그리고 그들두 집단의 관계적-연합체 모두와 직업적 조절을 이룩하기.

5. 지적 그리고 직업적 차원에서 개인성의 만족할만한 사회화를 달성하는 반면, 계속 감소하는 성급함과 계속 줄어드는 분노를 가지고 비슷한 그리고 약간 다른 존재들과 친숙한 접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 복귀 지도자들은 그들의 집단-놀이 활동들을 통해 후자의 이 달성에 더욱 기여한다.

6. 다양한 이 사회화 기법을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진보적 조화-협동 촉진에 맞추는 방법; 겉으로는 하찮은 이들 시간-공간 활동 안에 숨겨진 영원한 목표-의미들을 붙잡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주적 통찰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7. 그리고 나서, 집단적인 영적 연관과 모론시아 조화-협동을 통해 개인적 자질의 모든 위상들을 증강시키는 데에 그것이 적합하듯이 영적인 통찰력의 동시적 향상과 함께 다중(多重) 사회화의 이들 과정들 전체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방법.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두 도덕적 창조체들은 동반자 기법에 의한 우주 성취의 개인적 잠재를 오직 두 감절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달성 그리고 완성 가능성을 거의 곱으로 만든다.

우리는 10명의 동료 모론시아인들과의 비슷한 연관에 부수되는 10명의 지적으로 다른 개별 존재들로 구성된 유니비타시아 가족 집단과 한 모론시아 필사자가 연관하는 것으로 에덴시아 사회화를 묘사해 왔다. 그러나 처음 7개 주요 세계들에서는 오직 한 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만이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7개 주요 세계들의 두 번째 집단에서는 두 명의 필사자들이 10명의 원주민 집단 각각과 함께 거주하며, 그런 식으로 계속하여, 7개 주요 구체들의 마지막 집단에서는 10명의 모론시아 존재들이 10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hundred and then federated in corps of one thousand.

43:8.6 (494.5) 2. Abide joyfully and co-operate heartily with ten univitatia, who, though similar intellectually to morontia beings, are very different in every other way. And then must you function with this group of ten as it co-ordinates with ten other families, which are in turn confederated into a corps of one thousand univitatia.

43:8.7 (494.6) 3. Achieve simultaneous adjustment to both fellow morontians and these host univitatia. Acquire the ability voluntarily and effectively to co-operate with your own order of beings in close working association with a somewhat dissimilar group of intelligent creatures.

43:8.8 (494.7) 4. While thus socially functioning with beings like and unlike yourself, achieve intellectual harmony with, and make vocational adjustment to, both groups of associates.

43:8.9 (494.8) 5. While attaining satisfactory socialization of the personality on intellectual and vocational levels, further perfect the ability to live in intimate contact with similar and slightly dissimilar beings with ever-lessening irritability and ever-diminishing resentment. The reversion directors contribute much to this latter attainment through their group-play activities.

43:8.10 (494.9) 6. Adjust all of these various socialization techniques to the furtherance of the progressive co-ordination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augment universe insight by enhancing the ability to grasp the eternal goal-meanings concealed within these seemingly insignificant time-space activities.

43:8.11 (494.10) 7. And then, climax all of these procedures of multisocialization with the concurrent enhancement of spiritual insight as it pertains to the augmentation of all phases of personal endowment through group spiritual association and morontia co-ordination. Intellectu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two moral creatures do not merely double their personal potentials of universe achievement by partnership technique; they more nearly quadruple their attainment and accomplishment possibilities.

43:8.12 (495.1) We have portrayed Edentia socialization as an association of a morontia mortal with a univitatia family group consisting of ten intellectually dissimilar individuals concomitant with a similar association with ten fellow morontians. But on the first seven major worlds only one ascending mortal lives with ten univitatia. On the second group of seven major worlds two mortals abide with each native group of ten, and so on up until, on the last group of seven major spheres, ten morontia beings are domiciled with

산다. 너희가 유니비타시아와 어떻게 더 잘 사귀느냐를 배움에 따라, 너희는 너희 동료 모론시아 진보자들과의 너희 관계들 속에서 그러한 증진된 윤리를 실천할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너희는 에덴시아의 진보 세계들에 머무는 것을 즐길 것이지만, 그러나 체계 본부에서의 너희의 최초 우주 관련사와의 접촉, 그리고 또는 우주 수도의 마지막 세계에서 이들 실체들과 가지는 너희 작별하면서 가진 접촉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 만족감의 개인적 전율을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 9 장. 에덴시아의 시민권

70번 세계를 졸업한 후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에덴시아에서 거주하게 된다. 상승하는 인간들은 이제 처음으로 “파라다이스의 집회”에 참여하며 그들이 만났던 최극 삼위일체-기원 개인성들 중 첫 번째인 충심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것이 묘사되듯이 멀리-퍼지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에덴시아 시민권의 전성기인, 별자리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이 전체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참된 천상의 행복의 기간이다. 너희가 체계 세계들에 머무는 기간에 두루 너희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모론시아 창조체로 진화하였다; 너희는 영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물질적이었다. 구원자별 구체에서 너희는 모론시아 존재로부터 참된 영의 상태로 진화할 것이다; 너희는 물질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영적인 지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에덴시아에서는, 상승자들은 그들의 이전(以前) 상태와 미래 신분 사이의 중도자, 진화하는 동물로부터 상승하는 영으로 통과하는 중도자이다. 너희가 에덴시아 그리고 그 세계들에 머무는 전체 기간 동안 너희는 “천사와 비슷한” 상태이다; 너희는 계속적으로 진보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모론시아 지위를 줄곧 유지한다.

상승하는 인간의 이 별자리 체류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균일하고 안정된 신(新)시대이다. 이 체험은 상승자들의 영-이전(以前) 사회화 훈련을 구성한다. 그것은 하보나의 최중자-이전(以前) 영적 체험과 비슷하며 파라다이스에서의 아(亞)절대-이전(以前) 훈련과 비슷하다.

에덴시아에 있는 상승하는 인간들은 70개의 진보적 유니비타시아 세계들에서 주로 과제들을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능력들 속에서 봉사하는데, 집단, 종족, 국가, 그리고 행성의 복지와 관련된 별자리 계획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지고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양육하는 개별적 증진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별존재의 가슴보다는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통치한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자별 생애를 위해 에덴시

ten univitatia. As you learn how better to socialize with the univitatia, you will practice such improved ethics in your relations with your fellow morontia progressors.

43:8.13 (495.2) As ascending mortals you will enjoy your sojourn on the progress worlds of Edentia, but you will not experience that personal thrill of satisfaction which characterizes your initial contact with universe affairs on the system headquarters or your farewell touch with these realities on the final worlds of the universe capital.

9. CITIZENSHIP ON EDENTIA

43:9.1 (495.3) After graduation from world number seventy, ascending mortals take up residence on Edentia. Ascenders now, for the first time, attend the “assemblies of Paradise” and hear the story of their far-flung career as it is depicted by the Faithful of Days, the first of the Supreme Trinity-origin Personalities they have met.

43:9.2 (495.4) This entire sojourn on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culminating in Edentia citizenship, is a period of true and heavenly bliss for the morontia progressors. Throughout your sojourn on the system worlds you were evolving from a near-animal to a morontia creature; you were more material than spiritual. On the Salvington spheres you will be evolving from a morontia being to the status of a true spirit; you will be more spiritual than material. But on Edentia, ascenders are midway between their former and their future estates, midway in their passage from evolutionary animal to ascending spirit. During your whole stay on Edentia and its worlds you are “as the angels”; you are constantly progressing but all the while maintaining a general and a typical morontia status.

43:9.3 (495.5) This constellation sojourn of an ascending mortal is the most uniform and stabilized epoch in the entire career of morontia progression. This experience constitutes the prespirit socialization training of the ascenders. It is analogous to the prefinaliter spiritual experience of Havona and to the preabsonite training on Paradise.

43:9.4 (495.6) Ascending mortals on Edentia are chiefly occupied with the assignments on the seventy progressive univitatia worlds. They also serve in varied capacities on Edentia itself, mainly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ellation program concerned with group, racial, national, and planetary welfare. The Most Highs are not so much engaged in fostering individual advancement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rule in the kingdoms of men rather than in the hearts of individuals.

43:9.5 (495.7) And on that day when you are prepared

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날에, 너희는 파라다이스의 이 면을 훈련하는 너희의 전체 시기들을 가장 산뜻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를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체의 영광은 너희가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신성한 의미 그리고 영적인 가치들을 더욱 크게 이해하는 증가되는 수용력을 성취 할수록 증강할 것이다.

[말라바티아 멜기세덱에 의해 후원되었음]

to leave Edentia for the Salvington career, you will pause and look back on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most refreshing of all your epochs of training this side of Paradise. But the glory of it all augments as you ascend inward and achieve increased capacity for enlarged appreciation of divine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43:9.6 (496.1) [Sponsored by Malavatia Melchizedek.]

제 44 편 천상의 거장

⇨ 043

유랜시아 책

045 ⇨

부 II. 지역우주

제 44 편 천상의 거장

섹션

소개

- 제 1 장. 천상의 음악가
- 제 2 장. 하늘의 재생자
- 제 3 장. 신성한 건축자들
- 제 4 장. 생각 기록자
- 제 5 장. 에너지 조종자
- 제 6 장. 설계자들과 장식가
- 제 7 장. 조화 작업자
- 제 8 장. 필사자 열망과 모른시아 성취

소개

다양한 부분적 세계 그리고 우주 본부 세계의 우대거류민단 가운데에는, 천상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혼성 개인성들의 독특한 계층이 발견될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모른시아 그리고 하위 영 영역들의 주(主) 예술가들이며 거장들이다. 그들은 모른시아 장식에 그리고 영적 미화에 참여하는 영들 그리고 반(半)영들이다. 그러한 거장들은 대우주에 두루—초우주들의 본부 세계들, 지역우주들, 별자리들, 그리고 체계들, 뿐만 아니라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모든 구체들에—퍼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요 활동 영역은 별자리들 안에 있으며 특별히 각각의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70개 세계들에 있다.

그들의 활동이 물질적인 마음에게는 거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모른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이 그들의 높은 기술과 숭고한 문화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납득되어야만 한다.

PAPER 44

THE CELESTIAL ARTISAN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Celestial Musicians
- 2. The Heavenly Reproducers
- 3. The Divine Builders
- 4. The Thought Recorders
- 5. The Energy Manipulators
- 6. The Designers and Embellishers
- 7. The Harmony Workers
- 8. Mortal Aspirations and Morontia Achievements

INTRODUCTION

44:0.1 (497.1) AMONG the courtesy colonies of the various divisional and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may be found the unique order of composite personalities denominated the celestial artisans. These beings are the master artists and artisans of the morontia and lower spirit realms. They are the spirits and semispirits who are engaged in morontia embellishment and in spiritual beautification. Such artisan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superuniverses, the local universes,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as well as on all spheres settled in light and life; but their chief realm of activity is in the constellations and especially on the seven hundred seventy worlds surrounding each headquarters sphere.

44:0.2 (497.2) Though their work may be almost incomprehensible to the material mi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are not without their high arts and supernal cultures.

천상의 거장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며; 중앙우주에 고유하게 있는 특성의 선생 개인성들로 구성된 존재들의 선택되고 모집된 무리단이고, 자발적인 그들의 학생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수많은 다른 천상의 집단들로부터 뽑혔다. 이 기술자들에 대한 기원적 교육 무리단은 일곱 주(主) 영들의 협동을 받아 무한한 영에 의해 언젠가 배정되었으며 7,000명의 하보나 강사들, 거장들의 일곱 분야들 각각에 1,000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그러한 중심점으로 시작하여, 영과 모론시아 관련사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일꾼들의 이 찬란한 기구가 시대들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

모든 모론시아 개인성과 영 실존개체는 천상의 거장 무리단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그것은 천성적인 신성한 아들관계의 계급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이다. 진화하는 구체들로부터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모론시아 세계들에 도착한 후에, 거장 무리단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하며, 만일 충분히 재능을 갖고 있으면 비교적 긴 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러한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1,000년, 초우주 시간으로 1,000년 미만으로 천상의 거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천상의 거장 전체는 초우주 본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지역우주 수도들에서 모론시아 감독자들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들은 각 지역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기능하고 있는 모론시아 감독자들의 중앙 부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곱 주요 활동 분야에 임명 된다:

1. 천상의 음악가
2. 천상의 재생자
3. 신성한 건축자
4. 생각기록자
5. 에너지조종자
6. 설계자와 장식자
7. 조화(調和)작업자

이 일곱 집단의 기원적 선생들은 모두 하보나의 완전 세계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며, 하보나는 영 예술성의 모든 위상들과 형태들을 위한 원형들, 원형들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보나의 이들 예술들을 우주의 세계들에게 옮겨지게 하는 것이 거대한 임무이기는 하지만, 천상의 거장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기법과 실행에서 개선을 이루어오고 있다. 상승 생애의 다른 모든 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모든 계통에서 최고로 진보된 자들은 그들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그들보다 재능이 적은 동료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주도록 요구되고 있다.

너희는 맨션세계들에서 하보나의 이들 옮겨심어진 예술들을 처음으로 잠깐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깊은 감상은 너희가 구원자별의 영

44:0.3 (497.3) The celestial artisans are not created as such; they are a selected and recruited corps of beings composed of certain teacher personalities native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heir volunteer pupils drawn from the ascending mortals and numerous other celestial groups. The original teaching corps of these artisans was sometime assigned by the Infinite Spirit in collaboration with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consisted of seven thousand Havona instructors, one thousand to each of the seven divisions of artisans. With such a nucleus to start with, there has developed through the ages this brilliant body of skillful workers in spirit and morontia affairs.

44:0.4 (497.4) Any morontia personality or spirit entity is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corps of the celestial artisans; that is, any being below the rank of inherent divine sonship. Ascending sons of God from the evolutionary spheres may, after their arrival on the morontia worlds, apply for admission to the artisan corps and, if sufficiently gifted, may choose such a career for a longer or shorter period. But no one may enlist with the celestial artisans for less than one millennium, one thousand years of superuniverse time.

44:0.5 (497.5) All celestial artisans are registered on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but are directed by morontia supervisors on the local universe capitals. They are commissioned in the following seven major divisions of activity by the central corps of morontia supervisors functioning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ach local universe:

- 44:0.6 (497.6) 1. Celestial Musicians.
- 44:0.7 (497.7) 2. Heavenly Reproducers.
- 44:0.8 (497.8) 3. Divine Builders.
- 44:0.9 (497.9) 4. Thought Recorders.
- 44:0.10 (498.1) 5. Energy Manipulators.
- 44:0.11 (498.2) 6. Designers and Embellishers.
- 44:0.12 (498.3) 7. Harmony Workers.

44:0.13 (498.4) The original teachers of these seven groups all hailed from the perfect worlds of Havona, and Havona contains the patterns, the pattern studies, for all phases and forms of spirit artistry. While it is a gigantic task to undertake to transfer these arts of Havona to the worlds of space, the celestial artisans have improved in technique and execution from age to age. As in all other phases of the ascending career those who are most advanced in any line of endeavor are required constantly to impart their superior knowledge and skill to their less favored fellows.

44:0.14 (498.5) You will first begin to glimpse these transplanted arts of Havona on the mansion worlds, and their beauty and your appreciation of their beauty will heighten and brighten until you

회랑 안에 서서 영 영역들의 장엄한 예술가들의 영감이 넘치는 거작들을 바라보기까지, 높아지고 밝아질 것이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이 모든 활동들은 실체이다. 영 존재들에게 있어서 영 세계는 실체이다. 우리들에게는 물질세계는 더욱 비(非)실체이다. 높은 형태의 영들은 일상의 물질을 두루 자유롭게 지나간다. 높은 영들은 특정한 기본적인 에너지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영 세계는 다소 비(非)실체이다; 영 존재들에게 있어서 물질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비(非)실체이며, 단지 영 실체들의 본체가 지닌 그림자에 불과하다.

나는, 나에게만 있는 시력을 가지고서는, 이 이야기가 번역되고 기록되고 있는 건물을 감지할 수 없다. 우연히 내 옆에 서게 된 유버사로부터 온 신성한 조연자는 이들 순전히 물질적인 창조물을 훨씬 적게 감지한다. 우리는 이 물질적 구조물들이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나는지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변환자들 중 하나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제시된 하나의 영 부분을 봄으로써 분별한다. 물질적인 이 건축물은, 그것이 물질적인 필사자들에게는 매우 실체적이고 매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의 영 존재인 나에게 있어서는 것처럼 정확한 실체는 아니다.

영 세계와 물질세계 둘 모두의 창조계들의 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정한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이 등급에 속하는 것은 하보나 봉사원의 네 번째 창조체들 그리고 화해자들의 네 번째 창조체들로 불리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천사들은 영과 물질적 존재들 둘 모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또한 육신에서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뒤에 상승하는 필사자들도 그러하다. 높은 영 차원들을 달성한 후에는, 상승자들은 물질적 실체와 모론시아 실체 그리고 영 실체를 인지할 수 있다.

한 때 필사 존재였고 조절자-융합 상승자인, 유버사로부터 온 막강한 메신저가 또한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며, 그는 너희를 현재 있는 그대로 감지하며 동시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단독 메신저와 초(超)천사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눈으로 본다. 너희의 긴 상승 과정에 있어서 너희는 그 전에 실존하였을 때의 너희 동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삶의 사다리에서 안쪽을 향하여 너희가 상승할 때 너희는 그 이전의 그리고 보다 낮은 차원의 체험에서 만났던 연관-동료 존재들을 알아보고 형제우애를 가지는 능력을 항상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환 또는 부활이 있을 때마다, 그 이전 세계들에서 만난 너희 친구들과 동료들을 알아보는 능력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볼 수 있는 범위에 또 다른 영 존재들의 집단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체험 속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너희 삶의 전체 체험의 사본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음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한번 가졌던 그 어떤 참된 속성도 결코 잃어

stand in the spirit halls of Salvington and behold the inspiring masterpieces of the supernal artists of the spirit realms.

44:0.15 (498.6) All these activitie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are real. To spirit beings the spirit world is a reality. To us the material world is the more unreal. The higher forms of spirits freely pass through ordinary matter. High spirits are reactive to nothing material excepting certain of the basic energies. To material beings the spirit world is more or less unreal; to spirit beings the material world is almost entirely unreal, being merely a shadow of the substance of spirit realities.

44:0.16 (498.7) I cannot, with exclusive spirit vision, perceive the building in which this narrative is being translated and recorded. A Divine Counselor from Uversa who chances to stand by my side perceives still less of these purely material creations. We discern how these material structures appear to you by viewing a spirit counterpart presented to our minds by one of our attending energy transformers. This material building is not exactly real to me, a spirit being, but it is, of course, very real and very serviceable to material mortals.

44:0.17 (498.8) There are certain types of beings who are capable of discerning the reality of the creatures of both the spirit and the material worlds. Belonging to this class are the so-called fourth creatures of the Havona Servitals and the fourth creatures of the conciliators. The angels of time and space are endowed with the ability to discern both spirit and material beings as also are the ascending mortals subsequent to deliverance from the life in the flesh. After attainment of the higher spirit levels the ascenders are able to recognize material, morontia, and spirit realities.

44:0.18 (498.9) There is also here with me a Mighty Messenger from Uversa, an ascendant Adjuster-fused, onetime mortal being, and he perceives you as you are, and at the same time he visualizes the Solitary Messenger, the supernaphim, and other celestial beings present. Never in your long ascendancy will you lose the power to recognize your associates of former existences. Always, as you ascend inward in the scale of life, will you retain the ability to recognize and fraternize with the fellow beings of your previous and lower levels of experience. Each new translation or resurrection will add one more group of spirit beings to your vision range without in the least depriving you of the ability to recognize your friends and fellows of former estates.

44:0.19 (498.10) All this is made possible in the experience of ascending mortals by the action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Through their retention of the duplicates of your entire life's experiences, you are assured of never losing any true attribute you once had; and these Adjusters

버리지 않도록 보장되어있다; 이들 조절자들은 너희의 한 부분으로서, 실체로서, 너희로서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천상의 거장들의 작업의 본성을 물질적인 마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에서 거의 절망에 빠져있다. 나는 이들 모론시아 활동 행위들과 영에-근접한 현상들의 실체를 필사자 마음에게 펼쳐보이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악용하는 생각과 왜곡하는 언어에 대한 필연성에 계속적으로 지배 받고있다. 너희의 이해력은 파악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이들 반(半)영적 활동들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관계를 전하기에는 너희 언어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과제에서 나의 존재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면서, 이들 실체에 대하여 인간 마음을 깨우치려는 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필사 물질적 활동들과 천상의 거장들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서투른 대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시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에 유란시아 종족들이 예술을 비롯하여 다른 문화적 성취들에서 더욱 진보를 이룩하였다면, 나는 물질적 사물들로부터 모론시아의 사물들 쪽으로 인간 마음을 구체적으로 투사하려는 노력에서 더욱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에서의 이들 활동행위의 실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내가 성취하기 바랄 수 있는 거의 전부이다.

제 1 장. 천상의 음악가

필사자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론시아 곡조들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다. 거기에는 인간의 청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물질적 범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조화의 상상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다. 영 곡조들이 물질적 소리 파동은 아니지만 영 진동들은 천상의 개인성들의 영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광대한 범위와 표현하는 혼이 그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력을 온통 초월하는, 우주들의 선율과 연관-되는 연주의 장엄함도 있다. 나는 구체의 선율이 천상의 순환회로들의 영 에너지에 따라 흘러가는 동안 최고의 황홀경에 빠져 있는 수많은 기쁨에 넘친 존재들을 보아 왔다. 기묘한 이 선율들은 한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방송될 수 있다.

천상의 음악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 세력들을 조종함으로써 천상의 화음을 만드는 일에 매달려 있다:

1. 영적 소리—영 흐름 방해들.

2. 영적 빛—모론시아와 영적 영역들의 빛을 통제하고 강화함.

3. 에너지 충돌—모론시아 그리고 영 에너지

are going through with you, as a part of you, in reality, as *you*.

44:0.20 (499.1) But I almost despair of being able to convey to the material mind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celestial artisans. I am under the necessity of constantly perverting thought and distorting language in an effort to unfold to the mortal mind the reality of these morontia transactions and near-spirit phenomena. Your comprehension is incapable of grasping, and your language is inadequate for conveying, the meaning, value, and relationship of these semispirit activities. And I proceed with this effort to enlighten the human mind concerning these realities with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utter impossibility of my being very successful in such an undertaking.

44:0.21 (499.2) I can do no more than attempt to sketch a crude parallelism between mortal material activities and the manifold functions of the celestial artisans. If the Urantia races were more advanced in art and other cultural accomplishments, then could I go that much farther in an effort to project the human mind from the things of matter to those of morontia. About all I can hope to accomplish is to make emphatic the fact of the reality of these transactions of the morontia and the spirit worlds.

1. THE CELESTIAL MUSICIANS

44:1.1 (499.3) With the limited range of mortal hearing, you can hardly conceive of morontia melodies. There is even a material range of beautiful sound unrecognized by the human sense of hearing, not to mention the inconceivable scope of morontia and spirit harmony. Spirit melodies are not material sound waves but spirit pulsations received by the spirits of celestial personalities. There is a vastness of range and a soul of expression, as well as a grandeur of execution, associated with the melody of the spheres, that are wholly beyond human comprehension. I have seen millions of enraptured beings held in sublime ecstasy while the melody of the realm rolled in upon the spirit energy of the celestial circuits. These marvelous melodies can be broadcast to the uttermost parts of a universe.

44:1.2 (499.4) The celestial musicians are occupied with the production of celestial harmony by the manipulation of the following spirit forces:

44:1.3 (499.5) 1. *Spiritual sound* — spirit current interruptions.

44:1.4 (499.6) 2. *Spiritual light* — the control and intensification of the light of the morontia and spiritual realms.

44:1.5 (499.7) 3. *Energy impingements* — melody

들을 기술적으로 다룸으로써 산출되는 곡조.

4. 색깔 교향곡—모론시아 색조(色調)의 선율; 이것은 천상의 음악가들의 가장 높은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손꼽힌다.

5. 연관-동료 영들의 화음—장엄한 곡조들을 연주하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존재들로 구성된 다른 계층들의 참된 배열과 관계적-연합.

6. 생각의 선율—하보나의 곡조들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영적 사고들의 사색.

7. 공간의 음악—다른 구체들의 곡조를 알맞게 조율함으로써 우주 방송 순환회로들 위에 올릴 수 있음.

소리와 색과 에너지를 다루고 조종하는 기법에서 100,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인간이 악기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이다. 너희의 춤 합주곡 앙상블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존재 배치와 개인성 배열로 이루어지는 천상의 화음에 접근해 보려는 물질 창조체들의 조잡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대표한다. 모론시아 멜로디의 또 다른 5가지 형태들은 물질적 육체의 감각전달 기능구조로는 인지될 수 없다.

화음(和音), 음악적인 관계적-연합의 일곱 번째 차원의 음악은 영 통신의 한 우주적 신호이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납득하고 있는 음악은 예루셈의 학교들, 체계 본부에서 가장 높게 표현되는데, 그곳에서는 반(半) 물질적인 존재들이 음의 조화를 배운다.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곡조와 천상의 화음으로 된 다른 형태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 음악을 물리적 그리고 영적 모두로 깊이 이해하고 감상한다; 너희 인간 음악가들은 음악적 감각을 너희 옛 선조들의 미개한 단조로운 단음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더욱 높은 차원으로 높아지기 까지 많은 것을 해냈다. 대부분의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음악에 대해 물질적 근육으로 너무나 많이 반응하고 마음과 영으로는 너무나 적게 반응한다; 그러나 음악적 깊이는 이해와 감상에서 35,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한 향상이 있어 왔다.

음조가 넘치는 절분음(節分音)은 원시인의 음악적 단조로운 단음으로부터 너희 이후-시대 음악가들의 표현넘치는 화음과 의미넘치는 멜로디로 옮겨지는 하나의 과도기를 대표한다. 이들 리듬에서의 초기 유형들은 화음 감상에서의 더욱 높은 지능적 힘을 발휘할 필요 없이도 음악을-사랑하는 깊은 감각의 반응을 자극하며, 그에 따라서 더욱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나태한 개별존재에게 호소력이 있다.

유란시아에서의 최고의 음악은, 너희 음악가들의 천상의 연관-동료들에게 들렸던 장엄한 선율

produced by the skillful management of the morontia and spirit energies.

44:1.6 (499.8) 4. *Color symphonies* — melody of morontia color tones; this ranks among the highest accomplishments of the celestial musicians.

44:1.7 (499.9) 5. *Harmony of associated spirits* — the very arrangement and association of different orders of morontia and spirit beings produce majestic melodies.

44:1.8 (499.10) 6. *Melody of thought* — the thinking of spiritual thoughts can be so perfected as to burst forth in the melodies of Havona.

44:1.9 (499.11) 7. *The music of space* — by proper attunement the melodies of other spheres can be picked up on the universe broadcast circuits.

44:1.10 (500.1) There are over one hundred thousand different modes of sound, color, and energy manipulation, techniques analogous to the human employment of musical instruments. Your ensembles of dancing undoubtedly represent a crude and grotesque attempt of material creatures to approach the celestial harmony of being placement and personality arrangement. The other five forms of morontia melody are unrecognized by the sensory mechanism of material bodies.

44:1.11 (500.2) Harmony, the music of the seven levels of melodious association, is the one universal code of spirit communication. Music, such as Urantia mortals understand, attains its highest expression in the schools of Jerusem, the system headquarters, where semimaterial beings are taught the harmonies of sound. Mortals do not react to the other forms of morontia melody and celestial harmony.

44:1.12 (500.3) Appreciation of music on Urantia is both physical and spiritual; and your human musicians have done much to elevate musical taste from the barbarous monotony of your early ancestors to the higher levels of sound appreciation. The majority of Urantia mortals react to music so largely with the material muscles and so slightly with the mind and spirit; but there has been a steady improvement in musical appreciation for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years.

44:1.13 (500.4) Tuneful syncopation represents a transition from the musical monotony of primitive man to the expressionful harmony and meaningful melodies of your later-day musicians. These earlier types of rhythm stimulate the reaction of the music-loving sense without entailing the exertion of the higher intellectual powers of harmony appreciation and thus more generally appeal to immature or spiritually indolent individuals.

44:1.14 (500.5) The best music of Urantia is just a fleeting echo of the magnificent strains heard by

들이 획 지나가며 만들어낸 반향이며, 그들은 떠났어도 이들 모론시아 기세의 화음들은 소리 화음의 음악적 멜로디라는 기록으로 남아채어져 있다. 영-모론시아 음악은 표현과 재생에서의 일곱 가지 방식 모두를 드물지 않게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마음이 상급 구체의 이들 멜로디를 단순한 음악적 소리의 악보로 축소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서도 엄청나게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하나의 음악 악기를 수단으로 하여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재생하려고 수고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너희가 유란시아에서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조합해 왔지만, 음악적으로 사타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너희 이웃 행성에 가까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살아만 있었다라도, 너희는 실체 안에서 음악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 안에 그렇게도 많았던 화음에 대한 자질은, 비음악적 성향들의 기질에 의해 너무나 희석되어 왔기에, 1천여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한 번 그 어떤 위대한 화성학을 깨달음이 있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라; 언젠가는 실체 음악가가 유란시아에 출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든 멜로디의 장엄한 선율에 매혹될 것이다. 그러한 한 인간 존재가 국가 전체, 심지어는 나아가 문명화된 세계 전체까지도 그 진로를 언제나 바꿀 수 있다. “멜로디는 전 세계를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음악은 사람들과 천사들과 영들의 보편적인 언어로서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화음은 하보나의 언어이다.

제 2 장. 하늘의 재생자

필사자 사람은 천상의 재생자들의 기능에 대해 빈약하고 왜곡된 개념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질 희망이 거의 없는데, 나는 너희의 물질적인 언어의 조잡하고도 제한된 상징을 통해 그것들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영-모론시아 세계는 최극적 가치를 갖는 수많은 것들, 유란시아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번식할 가치가 있는 것들,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거의 어려웠던 활동들의 범주에 속한 체험들, 육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느님이 기다려 온 그 실체들을 갖고 있다.

천상의 재생자들은 일곱 개의 집단들로 되어 있으며, 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설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1. 가수들—과거의 특별한 화음들을 반복하고 현재의 멜로디들을 해석하는 화성학자들. 그러나 이 모두는 모론시아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다.

2. 색 작업자들—너희가 스케치하는 사람과 화가(畫家)라고 부를 수 있는 빛과 그림자의 예술가들, 장래의 모론시아 향락을 위해 지나가는 광경들과 과도기 에피소드들을 보존하는 예술가들.

the celestial associates of your musicians, who left but snatches of these harmonies of morontia forces on record as the musical melodies of sound harmonics. Spirit-morontia music not infrequently employs all seven modes of expression and reproduction, so that the human mind is tremendously handicapped in any attempt to reduce these melodies of the higher spheres to mere notes of musical sound. Such an effort would be something like endeavoring to reproduce the strains of a great orchestra by means of a single musical instrument.

44:1.15 (500.6) While you have assembled some beautiful melodies on Urantia, you have not progressed musically nearly so far as many of your neighboring planets in Satania. If Adam and Eve had only survived, then would you have had music in reality; but the gift of harmony, so large in their natures, has been so diluted by strains of unmusical tendencies that only once in a thousand mortal lives is there any great appreciation of harmonics. But be not discouraged; some day a real musician may appear on Urantia, and whole peoples will be enthralled by the magnificent strains of his melodies. One such human being could forever change the course of a whole nation, even the entire civilized world. It is literally true, “melody has power a whole world to transform.” Forever, music will remain the universal language of men, angels, and spirits. Harmony is the speech of Havona.

2. THE HEAVENLY REPRODUCERS

44:2.1 (500.7) Mortal man can hardly hope for more than a meager and distorted concept of the functions of the heavenly reproducers, which I must attempt to illustrate through the gross and limited symbolism of your material language. The spirit-morontia world has a thousand and one things of supreme value, things worthy of reproduction but unknown on Urantia, experiences that belong in the category of the activities which have hardly “entered into the mind of man,” those realities which God has in waiting for those who survive the life in the flesh.

44:2.2 (501.1) There are seven groups of the heavenly reproducers, and I will attempt to illustrate their work by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44:2.3 (501.2) 1. *The singers* — harmonists who reiterate the specific harmonies of the past and interpret the melodies of the present. But all of this is effected on the morontia level.

44:2.4 (501.3) 2. *The color workers* — those artists of light and shade you might call sketchers and painters, artists who preserve passing scenes and transient episodes for future morontia enjoyment.

3. 빛 영상자들—움직이는 그림들이 매우 천연적인 삽화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반(半)영적-현상들의 실체를 만드는 자들.

4. 역사전기 연출자들—우주적 기록과 역사의 중대한 사건들을 극적으로 재현시키는 자들.

5. 예언 명인들—역사의 의미들을 미래 속으로 구체적으로 투사하는 자들.

6. 일생-이야기 구술자들—삶의 체험의 의미와 의의(意義)를 영속시키는 자들. 현재의 개인적 체험들을 미래의 달성 가치들 속으로 구체적으로 투사하는 것.

7. 행정 제정자—통치 철학과 행정-관리적 기법의 의의(意義)를 묘사하는 자들, 주권을 가진 천상의 극작가들.

천상의 재생자들은 마음 휴식 그리고 개인성 전환에서의 특정 형태들과 기억 재현을 연결함에 있어서 복귀 지도자들과 매우 종종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동한다. 모론시아 비밀회의들과 영 집회들 앞에서, 이 재생자들은 그러한 모임들의 목적을 대변하는 거대한 희극 작품들 속에서 때때로 자신들을 연관시킨다. 나는 100만 명 이상의 배우들이 1,000개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엄청난 공연을 최근에 관람한 적이 있다.

비교적 높은 지적 선생들과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의 모론시아 교육 활동 안에서 다양한 집단의 재생자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전체가 과도기 예증(例證)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일들 중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영구적인 본성을 가지며 모든 미래 시간에 대해 하나의 유산으로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거장들은 너무나도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기능을 발휘할 때 그들은 한 시대를 다시 공연할 수 있으며,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과 협동하여 그들은 시간의 필사자 선지자들에게 영 세계의 영원한 가치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제 3 장. 신성한 건축자들

“하느님이 그 건축자요 만드신 이”인 도시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너희 필사자들이 익숙해 있는 그리고 대단히 많은 모든 것을 영 복제 속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집들과 영 위문품들 그리고 모론시아 필수품들을 갖고 있다.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부유하게 하고 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수천의 영적 실체들을 소유하고 있다. 신성한 건축자들은 일곱 개의 집단으로 기능 한다:

1. 주택 설계자들 그리고 건축자들— 개별존체들과 활동하는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지들을

44:2.5 (501.4) 3. *The light picturizers* — the makers of the real semispirit-phenomena preservations of which motion pictures would be a very crude illustration.

44:2.6 (501.5) 4. *The historic pageanteers* — those who dramatically reproduce the crucial events of universe records and history.

44:2.7 (501.6) 5. *The prophetic artists* — those who project the meanings of history into the future.

44:2.8 (501.7) 6. *The life-story tellers* — those who perpetuat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ife experience. The projection of present personal experiences into future attainment values.

44:2.9 (501.8) 7. *The administrative enactors* — those who depict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al philosophy and administrative technique, the celestial dramatists of sovereignty.

44:2.10 (501.9) Very often and effectively the heavenly reproducers collaborate with the reversion directors in combining memory recapitulation with certain forms of mind rest and personality diversion. Before the morontia conclaves and spirit assemblies these reproducers sometimes associate themselves in tremendous dramatic spectacles representative of the purpose of such gatherings. I recently witnessed such a stupendous presentation in which more than one million actors produced a succession of one thousand scenes.

44:2.11 (501.10) The higher intellectual teachers and the transition ministers freely and effectively utilize these various groups of reproducers in their morontia educational activities. But not all of their efforts are devoted to transient illustration; much, very much, of their work is of a permanent nature and will forever remain as a legacy to all future time. So versatile are these artisans that, when they function en masse, they are able to re-enact an age,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seraphic ministers they can actually portray the eternal values of the spirit world to the mortal seers of time.

3. THE DIVINE BUILDERS

44:3.1 (501.11) There are citie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In spirit counterpart we have all that you mortals are familiar with and inexpressibly more. We have homes, spirit comforts, and morontia necessities. For every material satisfaction which humans are capable of enjoying, we have thousands of spiritual realities that serve to enrich and enlarge our existence. The divine builders function in seven groups:

44:3.2 (502.1) 1. *The home designers and builders* — those who construct and remodel the abodes

건설하고 개조하는 자들. 이 모론시아 그리고 영 거주지들은 실제적이다. 그들은 너희의 근시안적인 눈에 비쳐지지 않겠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아름답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영 존재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또는 영 거주지들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건축자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집들은 그것들 속에서 살게 될 모론시아 또는 영 창조체들의 필요에 따라 갖추어지고 꾸며진다. 이 모든 건축물들 속에는 개별적인 표현을 위한 풍성한 다양함과 광대한 기회가 존재한다.

2. 직업 건축자들—영 그리고 모론시아 영역들의 정해진 그리고 일상적인 일꾼들의 거주지들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 건축자들은 유란시아 작업장과 다른 산업 공장들을 건축하는 그들과 비교될 수 있다. 변환기 세계들은 노동에 있어서 상호적 사명활동과 특수 분야들의 필연적 조화가 필요하다. 무리 전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모론시아 존재들 그리고 진화하는 영들 사이에는 상이한 기능이 있고, 이 직업 건축자들은 보다 나은 작업장들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증진에도 기여한다.

3. 놀이 건축자들. 수많은 구성물들이 휴식 기간 동안 활용되는데, 그것들은 필사자들이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모론시아 세계들, 상승하는 존재들이지만 진화적 행성들로부터 최근에 떠난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있는 변형 구체들의 해학가들인 복귀 지도자들을 위해 적절하게 장치되도록 감독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영들조차도 그들의 영적 재충전 기간 동안 추억에 잠기는 유머의 특별한 형태 속에 참여한다.

4. 경배 건축자들—영 그리고 모론시아 성전들의 숙련된 고안건축가들. 필사자가 상승하는 모든 세계들은 경배하는 성전들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론시아 영역 그리고 영 구체들의 가장 멋진 창작물들이다.

5. 교육 건축자들—모론시아 훈련과 고등 영 학습의 본부를 건축하는 자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 보편적인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작업에 관한 추가적 정보, 상승하는 인간들을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더욱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시민들로 만들도록 고안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 있다.

6. 모론시아 계획자들—모든 영역들의 모든 개인성들이 한 때 어느 한 구체에서 나타날 때 그들의 조화-협동 관계적-연합을 위해 건축하는 자들. 이 계획자들은 진보적인 모론시아 삶의 조화-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과 조화-협동한다.

assigned to individuals and working groups. These morontia and spirit domiciles are real. They would be invisible to your short-range vision, but they are very real and beautiful to us. To a certain extent, all spirit beings may share with the builders certain details of the planning and creation of their morontia or spirit abodes. These homes are fitted up and embel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morontia or of the spirit creatures who are to inhabit them. There is abundant variety and ample opportunity for individual expression in all these constructions.

44:3.3 (502.2) 2. *The vocation builders* — those who function in designing and assembling the abodes of the regular and routine workers of the spirit and morontia realms. These builders are comparable to those who construct the Urantia workshops and other industrial plants. The transition worlds have a necessary economy of mutual ministry and specialized division of labor. We do not all do everything; there is diversity of function among morontia beings and evolving spirits, and these vocation builders not only build better workshops but also contribute to the vocational enhancement of the worker.

44:3.4 (502.3) 3. *The play builders*. Enormous edifices are utilized during the seasons of rest, what mortals would call recreation and, in a certain sense, play. Provision is made for a suitable setting for the reversion directors, the humorists of the morontia worlds, those transition spheres whereon takes place the training of ascendant beings but recently removed from the evolutionary planets. Even the higher spirits engage in a certain form of reminiscent humor during their periods of spiritual recharging.

44:3.5 (502.4) 4. *The worship builders* — the experienced architects of the spirit and the morontia temples. All the worlds of mortal ascent have temples of worship, and they are the most exquisite creations of the morontia realms and the spirit spheres.

44:3.6 (502.5) 5. *The education builders* — those who build the headquarters of morontia training and advanced spirit learning. Always is the way open to acquire more knowledge, to gain additional information respecting one's present and future work as well as universal cultural knowledge, information designed to make ascending mortals more intelligent and effective citizen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44:3.7 (502.6) 6. *Morontia planners* — those who build for the co-ordinate association of all the personalities of all realms as they are at any one time present on any one sphere. These planners collaborate with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to enrich the co-ordination of the progressive morontia life.

7. 공공 건축자들—경배하는 자들 이외의 집회가 열리는 장소들을 계획하고 건축하는 거장들. 거대하고 장엄한 일반 집회 장소들이다.

이 구조물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장식물들 역시 물질적 인간들의 감각적 이해에 정확하게 실제적인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다. 너희가 그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간다면 이 성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초물질적 창조물들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식별하며 충분히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

제 4 장. 생각 기록자

이 거장들은 영역들의 우월한 생각을 보존하고 번식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7가지 부류들로 기능 한다:

1. 생각 보존자들. 이들은 영역들의 좀 더 높은 사고를 보존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는 그들은 지적(知的) 활동의 보화들을 정말로 소중히 간직한다. 처음으로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 나는 이 행성에 있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관념 작용에 대한 기록을 보았고 방송을 들었다. 생각 보존자들이 그러한 고귀한 관념들을 유버사의 언어로 보존하였다.

각각의 초우주는 자체의 언어, 그곳의 개인성들이 말하고 그곳 지역들에 두루 통용되는 말을 갖고 있다. 우리 초우주에서는 이것이 유버사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각각의 지역우주 역시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네바논의 높은 계층들 모두는 두 가지 언어, 네바돈 언어와 유버사 언어, 둘 모두를 구사한다. 다른 지역 우주에서 온 두 개별 존재가 만나면, 그들은 유버사 말로 교통 한다; 만약에,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초우주에 내려왔다면, 그들은 반드시 번역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언어가 거의 필요 없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그리고 거의-완벽한 납득이 존재 한다; 거기에서는 오직 하느님들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의 잠깐의 만남이, 1,000년 동안의 필사자 언어로 교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서로를 납득함을 드러낸다고 배웠다. 심지어는 구원자별에서조차 우리는 "우리는 알려진 그대로 안다."

모론시아 구체와 영 구체에서 생각을 언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이해 한계를 벗어난다. 생각을 영구 기록으로 축소시키는 우리들의 속도는 500,000개가 넘는 단어들 또는 생각 상징들이 유란시아 시간으로 1분 만에 기록될 수 있는 숙련 기록자들에 의해 크게 빨라질 수 있다. 이 우주 언어들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얘기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공급되어 있다. 기본적인 알파벳이 겨우 70개 문자들로 되어 있지만, 유버사의 개념 상징

44:3.8 (502.7) 7. *The public builders* — the artisans who plan and construct the designated places of assembly other than those of worship. Great and magnificent are the places of common assembly.

44:3.9 (502.8) While neither these structures nor their embellishment would be exactly real to the sensory comprehension of material mortals, they are very real to us. You would be unable to see these temples could you be there in the flesh; nevertheless, all of these supermaterial creations are actually there, and we clearly discern them and just as fully enjoy them.

4. THE THOUGHT RECORDERS

44:4.1 (503.1) These artisans are devoted to the preserv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uperior thought of the realms, and they function in seven groups:

44:4.2 (503.2) 1. *Thought preservers*. These are the artisan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higher thought of the realms. On the morontia worlds they truly treasure the gems of mentation. Before first coming to Urantia, I saw records and heard broadcasts of the ideation of some of the great minds of this planet. Thought recorders preserve such noble ideas in the tongue of Uversa.

44:4.3 (503.3) Each superuniverse has its own language, a tongue spoken by its personalities and prevailing throughout its sectors. This is known as the tongue of Uversa in our superuniverse. Each local universe also has its own language. All of the higher orders of Nebadon are bilingual, speaking both the language of Nebadon and the tongue of Uversa. When two individuals from different local universes meet, they communicate in the tongue of Uversa; if, however, one of them hails from another superuniverse, they must have recourse to a translator. In the central universe there is little need of a language; there exists perfect and well-nigh complete understanding; there, only the Gods are not fully comprehended. We are taught that a chance meeting on Paradise reveals more of mutual understanding than could be communicated by a mortal language in a thousand years. Even on Salvington we "know as we are known."

44:4.4 (503.4) The ability to translate thought into language in the morontia and spirit spheres is beyond mortal comprehension. Our rate of reducing thought to a permanent record can be so speeded up by the expert recorders that the equivalent of over half a million words, or thought symbols, can be registered in one minute of Urantia time. These universe languages are far more replete than the speech of the evolving worlds. The concept symbols of Uversa embrace

들은 10억 개 이상의 글자들을 포용한다. 네바돈의 언어는 기본적인 상징들 또는 알파벳의 숫자가 48개인 것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다.

2. 개념 기록자들. 기록자들 중 두 번째 집단은 개념 화상(畫像)들, 개념 원형들들의 보존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물질적 영역들에서 알려져 있는 영원한 기록의 한 형태이며, 나는 너희가 평범한 기록언어로 100년 동안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 방법에 의해 너희 시간으로 한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

3. 표의문자 기록자들. 우리는 너희가 사용하는 기록된 언어와 말로 하는 언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개 개념 영상화(映像化)와 표의문자 기법을 사용한다. 표의문자들을 보존하는 그들은 개념 기록자들의 작업보다 1,000배 더 향상시킬 수 있다.

4. 웅변 주취자들. 기록자들 중 이 집단은 웅변에 의해 번식되도록 사고를 보존하는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바돈의 언어를 사용하면 유란시아 필사자가 평생토록 해야 될 문제를 우리는 반시간의 연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들 활동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잠시 멈추어서 너희의 혼란되고 왜곡된 꿈속 세상에서의 기법—너희가 몇 초 동안에 한 밤의 환상 속에서 몇 년 동안의 체험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영 세계의 웅변은 오직 미숙하고 허점투성이인 유란시아의 연설을 듣는 너희에게 준비된 위로 잔치들 중의 하나이다. 설명을 뛰어 넘어서 영감을 주는 구원자별과 에덴시아의 연설 속에는 표현의 음악과 음조의 조화가 있다. 강렬한 이 개념들은 영광의 왕관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과 같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다른 세계의 이 실체들의 폭과 깊이를 인간 마음에 전달할 수 없다!

5. 방송 지도자들. 파라다이스와 초우주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방송들은 생각 보호자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일반적인 감독 아래에 있다. 그들은 방송 재료의 조화-협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검열관 그리고 편집자로서 봉사하는데, 파라다이스 방송 전체의 초우주 적응을 이룩하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방송을 지역우주들의 개별적인 말로 적응하고 번역한다.

지역우주 방송은 체계들과 개별 행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우주 보고서들의 전달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주어진 순환회로 안에서 각 세계에 모든 보고서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항상 기록을 남겨 둔다. 이 방송 지도자들은 지능 통신의 모든 목적을 위해 우주 흐름들을 활용하는

more than a billion characters, although the basic alphabet contains only seventy symbols. The language of Nebadon is not quite so elaborate, the basic symbols, or alphabet, being forty-eight in number.

44:4.5 (503.5) 2. *Concept recorders*. This second group of recorders are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concept pictures, idea patterns. This is a form of permanent recording unknown on the material realms, and by this method I could gain more knowledge in one hour of your time than you could gain in one hundred years of perusing ordinary written language.

44:4.6 (503.6) 3. *Ideograph recorders*. We have the equivalent of both your written and spoken word, but in preserving thought, we usually employ concept picturization and ideograph techniques. Those who preserve ideographs are able to improve one thousandfold upon the work of the concept recorders.

44:4.7 (503.7) 4. *Promoters of oratory*. This group of recorders are occupied with the task of preserving thought for reproduction by oratory. But in the language of Nebadon we could, in a half hour's address, c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tire lifetime of a Urantia mortal. Your only hope of comprehending these transactions is to pause and consider the technique of your disordered and garbled dream life — how you can in a few seconds traverse years of experience in these fantasies of the night season.

44:4.8 (503.8) The oratory of the spirit world is one of the rare treats which await you who have heard only the crude and stumbling orations of Urantia. There is harmony of music and euphony of expression in the orations of Salvington and Edentia which are inspiring beyond description. These burning concepts are like gems of beauty in diadems of glory. But I cannot do it! I cannot convey to the human mind the breadth and depth of these realities of another world!

44:4.9 (504.1) 5. *The broadcast directors*. The broadcasts of Paradise,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ar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is group of thought conservers. They serve as censors and editors as well as co-ordinators of the broadcast material, making a superuniverse adaptation of all Paradise broadcasts and adapting and translating the broadcasts of the Ancients of Days into the individual tongues of the local universes.

44:4.10 (504.2) The local universe broadcasts must also be modified for reception by the systems and the individual planets. The transmittal of these space reports is carefully supervised, and there is always a back registry to insure the proper reception of every report on every world in a given circuit. These broadcast directors are technically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숙련되어 있다.

6. 리듬 기록자들. 유란시아인들은 그들의 일 이 너희의 시적(詩的) 작품들과 매우 다르고 그것 들을 거의 무한하게 초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장들을 틀림없이 시인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리듬은 모론시아 존재와 영 존재 둘 모두에게 덜 피곤한 것이며, 그래서 리듬 형태로 수많은 기능들을 발휘함으로써 증강된 기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에덴시아 집회들에 대한 시적인 방송들 중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아-표현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이 멋진 형태의 대가인 천상의 천재들의 풍부한 색조와 곡조를 즐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7. 모론시아 기록자들. 나는 모론시아 관련사들 그리고 영 활동행위들에 대한 다양한 분류 작업의 전체 그림을 보존하는 작업에 배정된 생각 기록자들 중 이 중요한 집단의 기능을 물질적인 마음에게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모르겠으며; 투박하게 묘사하자면,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집단 사진작가들이다. 그들은 진보하는 이 신(新)시대들의 생생한 장면들과 연상들을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데, 모론시아 기록 보관소에 그것들을 보존한다.

제 5 장. 에너지 조종자

흥미롭고 효력적인 이 거장들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즉: 물리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다.

1. 물리에너지 조종자들. 물리-에너지 조종자들은 힘 지도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 왔으며 물리적 에너지의 많은 위상들에 대한 조종과 통제에 있어서 숙련자들이다. 그들은 초우주들의 기본적인 세 가지 흐름들과 30개 보조 에너지 분리들에 정통해 있다.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조력자들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의 조화우주 구체적인 투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자들이다.

2. 마음-에너지 조종자들. 이들은 모론시아 존재들과 다른 유형의 지능 존재들 사이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서 숙련자들이다. 필사자들 사이의 통신의 이 형태는 유란시아에서는 실천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교통하기 위해 상승하는 모론시아 존재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활동은 물질적인 마음에게 묘사할 수 있는 나의 힘을 너무나 벗어나는 지성적 연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독특한 모험들을 포용한다. 이 거장들은 무한한 영의 마음 순환회로를 예리하게 연구하는 자들이다.

expert in the utilization of the currents of space for all purposes of intelligence communication.

44:4.11 (504.3) 6. *The rhythm recorders.* Urantians would undoubtedly denominate these artisans poets, although their work is very different from, and almost infinitely transcends, your poetic productions. Rhythm is less exhausting to both morontia and spirit beings, and so an effort is frequently made to increase efficiency, as well as to augment pleasure, by executing numerous functions in rhythmic form. I only wish you might be privileged to hear some of the poetic broadcasts of the Edentia assemblies and to enjoy the richness of the color and tone of the constellation geniuses who are masters of this exquisite form of self-expression and social harmonization.

44:4.12 (504.4) 7. *The morontia recorders.* I am at a loss to know how to depict to the material mind the function of this important group of thought recorders assigned to the work of preserving the ensemble pictures of the various groupings of morontia affairs and spirit transactions; crudely illustrated, they are the group photographers of the transition worlds. They save for the future the vital scenes and associations of these progressive epochs, preserving them in the archives of the morontia halls of records.

5. THE ENERGY MANIPULATORS

44:5.1 (504.5) These interesting and effective artisans are concerned with every kind of energy: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44:5.2 (504.6) 1. *Physical-energy manipulators.* The physical-energy manipulators serve for long periods with the power directors and are experts in the manipulation and control of many phases of physical energy. They are conversant with the three basic currents and the thirty subsidiary energy segregations of the superuniverses. These beings are of inestimable assistance to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of the transition worlds. They are the persistent students of the cosmic projections of Paradise.

44:5.3 (504.7) 2. *Mind-energy manipulators.* These are the experts of intercommunication between morontia and other types of intelligent beings. This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mortals is practically nonexistent on Urantia. These are the specialists who promote the ability of the ascending morontia being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their work embraces numerous unique adventures in intellect liaison which are far beyond my power to portray to the material mind. These artisans are the keen students of the mind circuits of the Infinite Spirit.

3. 영-에너지 조종자들. 영-에너지 조종자들은 흥미로운 집단이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확립된 법칙에 따라 활동한다. 연구해 보면 영 능력은 신뢰할만한 결론을 가져오며 물리적 에너지들과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취급될 수 있다. 영 세계에는 물리적 영역들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하고도 믿을만한 법칙들이 존재한다. 최근의 수백만 년 동안 영적 에너지 수용을 위한 많은 개선된 기법들이, 우주들에 두루 천상의 존재들의 모른시아 그리고 다른 조종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영 에너지를 통치하는 영원한 아들의 근본적 법칙들에 대한 이 연구자들에 의해 효력을 발생해 왔다.

4. 복합 조종자들. 이것은 물리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로서 우주들에 두루 현시된 신성한 에너지의 세 개의 기원적인 위상들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에 전념하는 잘 훈련된 존재들로 이루어진 모험적 집단이다. 이들은 최극자 하느님의 우주 현존을 발견하려고 실체 안에서 찾고 있는 비슷한 개인성들인데, 왜냐하면 이 신(神) 개인성 안에서는 모든 대우주 신성의 체험적 통일이 발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거장들은 최근에 어느 정도 성공에 도달하였다.

5. 운송 충고자들. 운송 세라핌천사들에 대한 이 기술 충고자들의 무리단은 여정을 정하는 일 아니면 우주의 체계들에 있는 운송 우주머리를 돕는 일에 별 연구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가장 능숙하다. 그들은 구체들의 통행 감독자들이며 거주민이 사는 모든 행성들에 제시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는 70명의 운송 충고자들의 무리단이 봉사하고 있다.

6. 통신 전문가들.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는 행성간 그리고 우주 간 통신을 하는 12명의 거장들이 봉사하고 있다. 오랜 체험을 가진 이 존재들은 영역들의 통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발송 그리고 간섭 법칙들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들이다. 이 무리단은 중력 그리고 독자적 메신저들로 구성된 그것들을 제외하고 우주 메시지들의 모든 형태들에 관여한다. 유란시아에서는 그들의 작업의 대부분이 천사장들의 순환회로를 넘어서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휴식의 교사. 신성한 휴식은 영적-에너지 섭취하기 기법과 연관된다. 모른시아 그리고 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처럼 분명하게 다시 채워야만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깨우치려는 나의 시도에서 거친 예시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어찌되었건, 영 세계의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들의 규칙적인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집결하기에 적합한 장소들로 가야 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휴식에 들어가는 우리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해야만 한다.

44:5.4 (505.1) 3. *Spiritual-energy manipulators.* The manipulators of spiritual energy are an intriguing group. Spiritual energy act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laws, just as does physical energy. That is, spirit force, when studied, yields dependable deductions and can be precisely dealt with, even as can the physical energies. There are just as certain and reliable laws in the spirit world as obtain in the material realms. During the last few millions of years many improved techniques for the intake of spiritual energy have been effected by these students of the fundamental laws of the Eternal Son governing spirit energy as applied to the morontia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roughout the universes.

44:5.5 (505.2) 4. *The compound manipulators.* This is the adventurous group of well-trained beings who are dedicated to the functional association of the three original phases of divine energy manifested throughout the universes as physical, mindal, and spiritual energies. These are the keen personalities who are in reality seeking to discover the universe presence of God the Supreme, for in this Deity personality there must occur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all grand universe divinity. And to a certain extent, these artisans have in recent times met with some success.

44:5.6 (505.3) 5. *The transport advisers.* This corps of technical advisers to the transport seraphim are most proficient in collaborating with the star students in working out routings and in otherwise assisting the chiefs of transport on the worlds of space. They are the traffic supervisors of the spheres and are present on all inhabited planets. Urantia is served by a corps of seventy transport advisers.

44:5.7 (505.4) 6. *The experts of communication.* Urantia, likewise, is served by twelve technicians of interplanetary and interuniverse communication. These long-experienced beings are expert in the knowledge of the laws of transmittal and interference as applied to the communications of the realms. This corps is concerned with all forms of space messages except those of Gravity and Solitary Messengers. On Urantia much of their work must be accomplished over the archangels' circuit.

44:5.8 (505.5) 7. *The teachers of rest.* Divine rest is associated with the technique of spiritual-energy intake. Morontia and spirit energy must be replenished just as certainly as physical energy, but not for the same reasons. I am, perforce, compelled to employ crude illustrations in my attempts to enlighten you; nevertheless, we of the spirit world must stop our regular activities periodically and betake ourselves to suitable places of rendezvous where we enter the divine rest and thus recuperate our depleting energies.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들이 되기 시작해 왔고 그리고 영 관련사의 기법을 체험하기 시작해 온 다음에, 맨션세계들에 도달하면, 너희는 이들 문제에서 첫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계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순례자들이 그 전의 순환계들을 지나간 후에 파라다이스의 길고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휴식 속으로 인도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시간의 생애로부터 영원의 봉사로 옮기는 기술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체험의 마지막 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채우기 위해 요구되는 그리고 끝없는 생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영 힘의 비축분을 저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필수품, 휴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들 에너지 조종자들은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도 기능하는데, 에너지 섭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에 관한 세라핌 천사, 케루빔 그리고 사노빔들과 조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적인 케루빔과 수동적인 사노빔 사이에서 발산하는 기세들에서의 가장 도움이 되는 균형의 유지에 기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모론시아와 그리고 영 창조체들에게, 공간의 기본 에너지들의 효과적인 활용에 너무도 필수적인 신성한 휴식을 납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다른 많은 방법으로 협조를 내어준다.

제 6 장. 설계자들과 장식가

독특한 이 거장들의 절묘한 작업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영장식의 작업을 설명하려는 나의 역할에 있어서의 모든 시도는 마음과 물질의 너희 세계에서 이것들을 하려는 너희 자신의 딱한 그러나 가치 있는 수고를 물질적인 마음들에게 상기시켜줄 뿐일 것이다.

이 무리단은 1,000개가 넘는 활동 부서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주요 항목들로 나누어 있다:

1. 색 기교자들. 이들은 영 반영의 10,000가지 색조들로 하여금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그들의 절묘한 메시지들을 울려 퍼지게 하는 자들이다. 색조 인식 이외에, 이 활동들이 감지되게 할 만한 것이 인간 체험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2. 소리 설계자들. 다양한 정체성과 모론시아 인식의 영 파동들은 너희가 소리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 설계자들에 의해 묘사된다. 이 충동들은 실체 안에서, 천상의 무리들의 적나라하고 영화로운 영-혼들의 뛰어난 반영들이다.

3. 감정 설계자들. 느낌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이 존재들은 시간의 자녀들의 연구와 교화를 위해 그리고 모론시아 진보자들 그리고 발전하는 영들의 영감과 미화를 위해 모론시아의 정서와 신성의 감정들을 보존하는 자들이다.

44:5.9 (505.6) You will receive your first lessons in these matters when you reach the mansion worlds after you have become morontia beings and have begun to experience the technique of spirit affairs. You know of the innermost circle of Havona and that, after the pilgrims of space have traversed the preceding circles, they must be inducted into the long and revivifying rest of Paradise. This is not only a technical requirement of transit from the career of time to the service of eternity, but it is also a necessity, a form of rest required to replenish the energy losses incident to the final steps of the ascendant experience and to store reserves of spirit power for the next stage of the endless career.

44:5.10 (506.1) These energy manipulators also function in hundreds of other ways too numerous to catalogue, such as counseling with the seraphim, cherubim, and sanobim regarding the most efficient modes of energy intake and as to the maintenance of the most helpful balances of divergent forces between active cherubim and passive sanobim. In many other ways do these experts lend assistance to morontia and spirit creatures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 divine rest, which is so essential to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basic energies of space.

6. THE DESIGNERS AND EMBELLISHERS

44:6.1 (506.2) How I wish I knew how to portray the exquisite work of these unique artisans! Every attempt on my part to explain the work of spirit embellishment would only recall to material minds your own pitiful but worthy efforts to do these things on your world of mind and matter.

44:6.2 (506.3) This corps, while embracing over one thousand subdivisions of activity, is grouped under the following seven major heads:

44:6.3 (506.4) 1. *The craftworkers of color.* These are they who make the ten thousand color tones of spirit reflection peal forth their exquisite messages of harmonious beauty. Aside from color perception there is nothing in human experience to which these activities may be compared.

44:6.4 (506.5) 2. *The sound designers.* Spirit waves of diverse identity and morontia appreciation are depicted by these designers of what you would call sound. These impulses are in reality the superb reflections of the naked and glorious spirit-souls of the celestial hosts.

44:6.5 (506.6) 3. *The emotion designers.* These enhancers and conservators of feeling are those who preserve the sentiments of morontia and the emotions of divinity for the study and edification of the children of time and for the inspiration and

4. 냄새의 명인들. 화학적인 냄새들에 대한 물리적 감지에 천상의 영 활동들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당하지만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어떤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이 사망활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거장들은 빛의 진보하는 자녀들의 교화와 기쁨을 위해 다양한 교향곡들을 창조한다. 너희는 이 유형의 영적인 장엄함에 조금이라도 비교될만한 것을 지구상에서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5. 현존 장식가들. 이 거장들은 자아-장식의 예술 또는 창조체 미화의 기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들 다양한 존재의 혼성 합주곡 속에서 다른 모론시아 그리고 영 조직들에게 배정된 위치상의 가치들을 통하여 관계의 의의(意義)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개의 모론시아 그리고 영 창조체들 안에 광대하고도 기쁨에 넘친 반응들을 산출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이 예술가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음악 선율, 냄새, 광경에 대해 하는 것처럼 초물질적 존재들을 배열한 다음 그것들을 섞어서 영광스러운 성가가 되게 한다.

6. 맛 설계자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거장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그들이 모론시아 맛을 개선하는 자들이고 또한 진화하는 영 감각들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어렵듯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

7. 모론시아 합성가들. 이들은 다른 모든 존재들이 그들 각각에 따른 공헌을 할 때 모론시아 합주곡에 절정에 이르는 그리고 완결하는 접촉을 하고 그래서 신성하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영감 있는 묘사, 영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모론시아 연관-동료들을 향한 영구적인 영감을 성취하게 하는 주(主) 거장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 세계들의 예술적 영광과 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너희가 먼저 동물적인 육체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 7 장. 조화 작업자

이 예술가들은 너희가 추측하는 것과 같은 음악 미술 또는 다른 비슷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 세계에 제시되어 있지만 필사자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없는 특별한 기세와 에너지들의 조종하는 것과 조직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다. 만일 내가 비교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가능한 근거를 가졌더라면 영 성취의 이 독특한 분야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겠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에 빠진다.—이 구체에서의 천상의 예술을 필사자 마음에게 전할 그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될 수 없는 그것을 여전히 암시해 볼까 한다:

beautification of morontia progressors and advancing spirits.

44:6.6 (506.7) 4. *The artists of odor.* This comparison of supernal spirit activities to the physical recognition of chemical odors is, indeed, unfortunate, but Urantia mortals could hardly recognize this ministry by any other name. These artisans create their varied symphonies for the edification and delight of the advancing children of light. You have nothing on earth to which this type of spiritual grandeur can be even remotely compared.

44:6.7 (506.8) 5. *The presence embellishers.* These artisans are not occupied with the arts of self-adornment or the technique of creature beautification. They are devoted to the production of multitudinous and joyous reactions in individual morontia and spirit creatures by dramatizing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 through the positional values assigned to different morontia and spirit orders in the composite ensembles of these diversified beings. These artists arrange supermaterial beings as you would living musical notes, odors, sights, and then blend them into the anthems of glory.

44:6.8 (506.9) 6. *The taste designers.* And how can you be told of these artists! Faintly I might suggest that they are improvers of morontia taste, and they also endeavor to increase the appreciation of beauty through the sharpening of the evolving spirit senses.

44:6.9 (507.1) 7. *The morontia synthesizers.* These are the master craftsmen who, when all others have made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then add the culminating and finishing touches to the morontia ensemble, thus achieving an inspiring portrayal of the divinely beautiful, an enduring inspiration to spirit beings and their morontia associates. But you must await your deliverance from the animal body before you can begin to conceive of the artistic glories and aesthetic beauties of the morontia and spirit worlds.

7. THE HARMONY WORKERS

44:7.1 (507.2) These artists are not concerned with music, painting, or anything similar, as you might be led to surmise. They are occupied with the manipulation and organization of specialized forces and energies which are present in the spirit world, but which are not recognized by mortals. If I had the least possible basis for comparison, I would attempt to portray this unique field of spirit achievement, but I despair — there is no hope of conveying to mortal minds this sphere of celestial artistry. Nevertheless, that which cannot be described may still be implied:

아름다움, 리듬, 그리고 조화는 지적으로 연관된 것이고 영적으로 동족이다. 진리, 사실, 그리고 관계는 지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철학적 개념과 연관된다. 선함, 정의로움, 그리고 공의는 철학적으로 상호관련 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와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묶여 있다.

참된 철학의 조화우주 개념들이나, 천상의 예술의 묘사나, 또는 신성한 아름다움에서의 인간의 인지를 서술하려는 필사자 시도는, 만일 그렇게 시도되는 창조체 진보가 통합되지 않는다면, 결코 참되게 만족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진화하는 창조체 안에서의 신성한 충동의 이들 표현은 지적으로 참되고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진리의 실체들과, 아름다움의 의미들, 그리고 선함의 가치들이 거장, 과학자, 또는 철학자의 일생 체험 안에 통합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에서의 실체적 혼이 결여된 것이다.

이 신성한 본질특성들은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각각의 사람 또는 천사는 하느님과-같은-이름이 되는—영원한 진리, 우주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善)의 진화적 체험 안에서의 체험적인 혼합을 이루는—끝이 없는 성취의 기법에 의해 통합된 자아-실현의 영원한-진보 차원들에서의 무제한적 자아-표현의 잠재를 갖는다.

제 8 장. 필사자 열망과 모른시아 성취

천상의 거장이 유란시아와 같은 물질적 행성들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필사종족들 중 본성적으로 재능을 받은 개별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의 본부들로부터 때때로 온다. 그렇게 배치되면, 이 거장들은 진보를 담당하는 행성 천사들의 감독 아래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한다. 세라핌천사 무리는 천성적인 자질을 가진 그리고 또한 특별하고도 이전(以前)의 체험을 가진 조절자를 소유한 이 필사자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거장들과 협동한다.

특별한 인간 능력에는 세 가지 가능한 근원들이 있다: 제일 밑에는 항상 자연본성적 또는 선천적인 소질이 존재한다. 특별한 능력은 하느님들의 독단적인 선물인 경우가 전혀 없으며; 모든 뛰어난 재능은 항상 선조들에게 근거한다. 이 자연적 재능에 덧붙여서, 또는 거기에 보충되어서, 내주하는 조절자가 다른 세계에서 또는 다른 필사 창조체 안에서 그러한 계통을 따라 실재적인 그리고 진정한 체험들을 이미 가졌을지도 모를, 저들 개별존재 안에서의 생각 조절자들의 인도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인간 마음과 내주하는 조절자 둘 모두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경우에, 영 거장들은 이 재능들을 조화시키는 자로서 활동하기

44:7.2 (507.3) Beauty, rhythm, and harmony are intellectually associated and spiritually akin. Truth, fact, and relationship are intellectually inseparable and associated with the philosophic concepts of beauty. Goodness,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philosophically interrelated and spiritually bound up together with living truth and divine beauty.

44:7.3 (507.4) Cosmic concepts of true philosophy, the portrayal of celestial artistry, or the mortal attempt to depict the human recognition of divine beauty can never be truly satisfying if such attempted creature progression is ununified. These expressions of the divine urge within the evolving creature may be intellectually true, emotionally beautiful, and spiritually good; but the real soul of expression is absent unless these realities of truth, meanings of beauty, and values of goodness are unified in the life experience of the artisan, the scientist, or the philosopher.

44:7.4 (507.5) These divine qualities are perfectly and absolutely unified in God. And every God-knowing man or angel possesses the potential of unlimited self-expression on ever-progressive levels of unified self-realization by the technique of the never-ending achievement of Godlikeness — the experiential blending in the evolutionary experience of eternal truth, universal beauty, and divine goodness.

8. MORTAL ASPIRATIONS AND MORONTIA ACHIEVEMENTS

44:8.1 (507.6) Although celestial artisans do not personally work on material planets, such as Urantia, they do come, from time to time,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to proffer help to the naturally gifted individuals of the mortal races. When thus assigned, these artisans temporarily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lanetary angels of progress. The seraphic hosts co-operate with these artisans in attempting to assist those mortal artists who possess inherent endowments, and who also possess Adjusters of special and previous experience.

44:8.2 (507.7) There are three possible sources of special human ability: At the bottom *always* there exists the natural or inherent aptitude. Special ability is never an arbitrary gift of the Gods; there is always an ancestral foundation for every outstanding talent. In addition to this natural ability, or rather supplemental thereto, there may be contributed the leadings of the Thought Adjuster in those individuals whose indwelling Adjusters may have had actual and bona fide experiences along such lines on other worlds and in other mortal creatures. In those cases where both the human mind and the indwelling Adjuster are unusually skillful, the spirit artisans may be delegated to act

위해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 필사자들로 하여금 영역의 교화를 위해 그들의 증진된 설명을 시도하고 항상-완전하게 하는 이상들을 추구하도록 도와 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 파견될 수 있다.

영 거장들의 사회에는 특권계급 제도가 없다. 너희의 기원이 아무리 저급하다 하더라도, 만일 너희가 표현 능력과 선물을 소유하였다면, 너희는 적절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위를 향해 상승할 때 모론시아 체험과 영적 달성의 크기에 따라 정당한 진가를 인정받을 것이다. 모론시아 생애가 충분히 보상하고 전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유전에서 장어나 또는 필사자 환경의 박탈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술적 성취와 풍부한 표현의 자아-실현의 그러한 만족감 전체는 진보적 성취 속에서의 너희 자신의 개인적 인 노력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진화적인 평범한 사람의 포부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들이 시간의 자녀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독단적으로 증여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모든 그들의 고귀한 동경이 만족되는 달성을 위해, 그리고 지고한 자아-표현을 하려는 모든 인간의 갈망이 충족되는 것을 위해 꼭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는 기억해야만 한다: 육신 안에서의 필사자들을 에타게 만드는, 남보다 뛰어나려는 많은 야망들은 모론시아와 영 생애에서는 이들 똑같은 필사자와 끈질기게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하는 모론시아인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순전히 이기적인 갈망들과 자기본위적인 야망들을 사회화하는 것을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하기를 바랐고, 그러나 환경이 너희를 그토록 끈질기게 거부하였던 것들은, 만일 모론시아 생애에서 참된 모타 통찰력을 습득한 이후에도 너희가 여전히 하고자 갈망한다면, 너희는 너희가 오랫동안-품어왔던 욕망들을 충만하게 만족시킬 그 각각의 기회를 가장 분명하게 부여받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그들의 영 생애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역우주를 떠나게 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필사자 실존이나 모론시아 실존의 수준을 언제나 내내 특징지었던 모든 지적, 예술적, 그리고 사회적 갈망이나 혹은 참된 야망에 관하여 충분히 만족해질 것이다. 이것은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만족에서 동등성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솜씨, 기법 그리고 표현에서의 동일한 체험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징적인 개별성을 완벽하게 말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적 달성에서의 새로운 영 차이점은 너희가 하보나 생애의 최종 순환계를 완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평준을 이루고 그리고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거주자들은 개인적 체험에서의 아(亞)절대적 차이를 조절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차이는 창조체 지위의 궁극을 집단적으로 달성하는 것—필사자 최종자의 일곱째-단계-영 운명—에 의해서만 평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천상의 거장, 파라다이스 창조자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묘사로 고

as harmonizers of these talents and otherwise to assist and inspire these mortals to seek for ever-perfecting ideals and to attempt their enhanced portrayal for the edification of the realm.

44:8.3 (508.1) There is no caste in the ranks of spirit artisans. No matter how lowly your origin, if you have ability and the gift of expression, you will gain adequate recognition and receive due appreciation as you ascend upward in the scale of morontia experience and spiritual attainment. There can be no handicap of human heredity or deprivation of mortal environment which the morontia career will not fully compensate and wholly remove. And all such satisfactions of artistic achievement and expressionful self-realization will be effected by your own personal efforts in progressive advancement. At last the aspirations of evolutionary mediocrity may be realized. While the Gods do not arbitrarily bestow talents and ability upon the children of time, they do provide for the attainment of the satisfaction of all their noble longings and for the gratification of all human hunger for supernal self-expression.

44:8.4 (508.2) But every human being should remember: Many ambitions to excel which tantalize mortals in the flesh will not persist with these same mortals in the morontia and spirit careers. The ascending morontians learn to socialize their former purely selfish longings and egoistic ambitions. Nevertheless, those things which you so earnestly longed to do on earth and which circumstances so persistently denied you, if, after acquiring true mota insight in the morontia career, you still desire to do, then will you most certainly be granted every opportunity fully to satisfy your long-cherished desires.

44:8.5 (508.3) Before ascending mortals leave the local universe to embark upon their spirit careers, they will be satiated respecting every intellectual, artistic, and social longing or true ambition which ever characterized their mortal or morontia planes of existence. This is the achievement of equality of the satisfaction of self-expression and self-realization but not the attainment of identical experiential status nor the complete obliteration of characteristic individuality in skill, technique, and expression. But the new spirit differential of personal experiential attainment will not become thus leveled off and equalized until after you have finished the last circle of the Havona career. And then will the Paradise residents b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adjusting to that absonite differential of personal experience which can be leveled off only by the group attainment of the ultimate of creature status — the seventh-stage-spirit destiny of the mortal finalizers.

44:8.6 (508.4)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celestial artisans, that cosmopolitan body of exquisite

안건축 구체들을 그토록 영화롭게 하는 절묘한 일
꾼들의 세계주의적 조직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바돈의 한 천사장에 의해 씌어짐]

workers who do so much to glorify the
architectural spheres with the artistic portrayals of
the divine beauty of the Paradise Creators.

44:8.7 (508.5) [Indi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45 편 지역체계 관리-행정

⇨ 044

유란시아 책

046 ⇨

부 II. 지역우주

제 45 편 지역체계 관리-행정

섹션

소개

제 1 장. 과도기 문화 세계

제 2 장. 체계 주권자

제 3 장. 체계 정부

제 4 장. 4명과 20명의 조언자

제 5 장. 물질 아들

제 6 장. 상승자들에 대한 아담의 훈련

제 7 장. 멜기세덱 학교

PAPER 45

THE LOCAL SYSTEM
ADMINISTR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ransitional Culture Worlds

2. The System Sovereign

3. The System Government

4.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5. The Material Sons

6. Adamic Training of Ascenders

7. The Melchizedek Schools

소개

사타니아의 행정-관리적 중심은 고안건축 구체들의 군락, 숫자로서 57개—예루셈 자체, 7개의 주요위성과 종속위성 49개—로 이루어져 있다. 체계 수도인 예루셈은 유란시아보다 비록 중력은 다소 적지만, 그 크기는 거의 100배에 달한다. 예루셈의 주요 위성들은 일곱 과도기 세계이며, 그 각각은 유란시아보다 거의 10배 크고, 한편 이 과도기 구체들의 일곱 종속위성들은 유란시아와 크기가 비슷하다.

일곱 맨션세계들은 1번 과도기 세계의 일곱 종속위성들이다.

57개 고안건축 세계들의 전체 체계는 특별하게 창조된 이들 구체들의 물리적 조직과 배열의 성립된 기법에 따라 사타니아 힘 중심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조화-협동에 의해 개별적으로 빛이 비취고 가열되며 물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주입된다. 그것들은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 스포르나기아에 의해 관리된다.

INTRODUCTION

45:0.1 (509.1)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Satania consists of a cluster of architectural spheres, fifty-seven in number — Jerusalem itself, the seven major satellites, and the forty-nine subsatellites. Jerusalem, the system capital, is almost one hundred times the size of Urantia, although its gravity is a trifle less. Jerusalem's major satellites are the seven transition worlds, each of which is about ten times as large as Urantia, while the seven subsatellites of these transition spheres are just about the size of Urantia.

45:0.2 (509.2) The seven mansion worlds are the seven subsatellites of transition world number one.

45:0.3 (509.3) This entire system of fifty-seven architectural worlds is independently lighted, heated, watered, and energized by the co-ordination of the Satania Power Center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technique of the physical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of these specially created spheres. They are also physically cared for and otherwise maintained by the native spornagia.

제 1 장. 과도기 문화 세계

예루살렘을 돌고 있는 일곱 주요세계들은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들의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살렘 최고 집행 협의회에 의해 지정된다. 이들 구체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가 매겨지고 이름이 붙는다:

1번. 최종자 세계. 이것은 지역체계의 최종자 무리단의 본부이며 그 둘레에는 접수 세계, 필사자 상승 계획에 충만하게 바쳐진 일곱 맨션세계가 둘러싸고 있다. 최종자 세계는 모든 일곱 맨션세계의 거주자가 방문할 수 있다.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이 순례여행에서 상승하는 개인성들을 왕복 운송하는데, 그들은 과도기 필사자들의 궁극적 운명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기르도록 작정되어 있다. 최종자와 그들의 구조가 모론시아 시력에 근원적으로 감지될 수 없기는 하지만, 너희가 놀랄 만한 과업을 완성할 수 있고 완성하게 되리라는 확신의 보증으로서, 너희가 이 긴 여행을 시작한 바로 그 세계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실제로로 완성한, 이들 높은 영 개인성을 너희가 잠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에너지 변환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때때로 만들어 줄 때 너희는 너무나 가슴 설렘 것이다. 맨션세계에 머무는 자들은 모두 최종자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런 집회를 위해 일 년에 적어도 한번 최종자 구체로 간다.

2번. 모론시아 세계. 이 행성은 모론시아 삶에 대한 감독자들의 본부이며, 그들의 연관-동료와 조력자, 모론시아 존재와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들 모두를 모론시아 우두머리들이 훈련하는 일곱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일곱 맨션세계들을 통과해 지나갈 때, 너희는 또한 모론시아 접촉을 점점 더하게 되는 이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구체들을 통과해 진보할 것이다. 너희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보할 때, 너희는 과도기 본부 2번, 모론시아 세계까지 방문자의 허락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이 여섯 문화구체들 중의 어느 하나에 제시되어 그곳에 있을 때, 너희는 연관된 집단 활동을 하는 둘러싼 일곱 세계들 중 어느 곳에서든, 초청을 받아, 방문자 또는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

3번. 천사 세계. 이것은 체계 활동에 참여하는 세라핌천사 무리 전체의 본부이며 천사 훈련 그리고 교육을 하는 일곱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들은 세라핌천사의 사회구체들이다.

4번. 특급천사 세계. 이 구체는 찬란한 저녁 별들과, 조화-협동하고 그리고 유사-조화-협동하는 존재들의 거대한 군집의 사타니아 고향이다. 이

1. TRANSITIONAL CULTURE WORLDS

45.1.1 (509.4) The seven major worlds swinging around Jerusalem are generally known as the transitional culture spheres. Their rulers are design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Jerusalem supreme executive council. These spheres are numbered and named as follows:

45.1.2 (509.5) *Number 1. The Finaliter World.* This is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 corps of the local system and is surrounded by the receiving worlds, the seven mansion worlds, dedicated so fully to the scheme of mortal ascension. The finaliter world is accessible to the inhabitants of all seven mansion worlds. Transport seraphim carry ascending personalities back and forth on these pilgrimages, which are designed to cultivate their faith in the ultimate destiny of transition mortals. Although the finaliters and their structures are not ordinarily perceptible to morontia vision, you will be more than thrilled, from time to time, when the energy transform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enable you momentarily to glimpse these high spirit personalities who have actually completed the Paradise ascension, and who have returned to the very worlds where you are beginning this long journey, as the pledge of assurance that you may and can complete the stupendous undertaking. All mansion world sojourners go to the finaliter sphere at least once a year for these assemblies of finaliter visualization.

45.1.3 (510.1) *Number 2. The Morontia World.* This planet is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visors of morontia life and is surrounded by the seven spheres whereon the morontia chiefs train their associates and helpers, both morontia beings and ascending mortals.

45.1.4 (510.2) In passing through the seven mansion worlds, you will also progress through these cultural and social spheres of increasing morontia contact. When you advance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mansion world, you will become eligible for a visitor's permit to transitional headquarters number two, the morontia world, and so on. And when present on any one of these six cultural spheres, you may, on invitation, become a visitor and observer on any of the seven surrounding worlds of associated group activities.

45.1.5 (510.3) *Number 3. The Angelic World.* This is the headquarters of all the seraphic hosts engaged in system activities and is surrounded by the seven worlds of angelic training and instruction. These are the seraphic social spheres.

45.1.6 (510.4) *Number 4. The Superangel World.* This sphere is the Satania home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nd a vast concourse of co-ordinate and near-co-ordinate beings. The seven

세계의 일곱 위성들은 이름이 없는 세 천상의 존재들의 일곱 주요 집단에 배정되어 있다.

5번. 아들들의 세계. 이 행성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을 포함하는 모든 계층들의 신성한 아들들의 본부이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들은 이들 신성하게 관계된 아들들의 어떤 개별적 집단화에 바쳐져 있다.

6번.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의 체계 집합장소로 봉사한다. 둘러싸고 있는 그것의 일곱 위성들은 다양한 이 계층들의 개별 집단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도기 세계 6번에는 영의 대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수도들에서 관측될 그러한 현존도 없다;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네바돈 안에 어디든지 있다.

7번. 아버지의 세계. 이것은 체계의 고요한 구체다. 어떤 집단의 존재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빛나는 위대한 성전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안에서 식별되지 않는다. 모든 체계 세계들의 모든 존재들은 경배자로서 환영을 받는다.

아버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들은 다른 체계들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타니아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루시퍼 반역으로 구금된 집단들을 위한 억류 구체로 사용되고 있다. 별자리 수도인 에덴시아는 유사한 감옥 세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 사타니아 반역에서 그 반역에 가담하였던 소수의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이 예루셈의 이 고립된 세계에 오래 전부터 구금되어 있다.

일곱 맨션세계에 머무는 자로서, 너희는 우주 아버지의 구체인 일곱 번째 과도기 세계에 갈 수 있으며,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루시퍼를 따랐던 그 개인성들 대부분과 그를 현재 감금하고 있는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사타니아 감옥 행성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슬픈 장면은 최근의 이 시대들 동안 관람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우주의 아버지인 미가엘에 의해 제공된 구원을 거부하였던 루시퍼와 그의 몰락한 연관-동료들의 죄를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판결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에게 하나의 엄중한 경고로서 계속 봉사할 것이다.

satellites of this world are assigned to the seven major groups of these unnamed celestial beings.

45:1.7 (510.5) *Number 5. The World of the Sons.*

This planet is the headquarters of the divine Sons of all orders, including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 surrounding seven worlds are devoted to certain individual groupings of these divinely related sons.

45:1.8 (510.6) *Number 6. The World of the Spirit.*

This sphere serves as the system rendezvous of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ts seven surrounding satellites are assigned to individual groups of these diverse orders. But on transition world number six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the Spirit, neither is such a presence to be observed on the system capitals; the Divine Minister of Salvation is *everywhere* in Nebadon.

45:1.9 (510.7) *Number 7. The World of the Father.*

This is the silent sphere of the system. No group of beings is domiciled on it. The great temple of light occupies a central place, but no one can be discerned therein. All beings of all the system worlds are welcomed as worshipers.

45:1.10 (510.8) *The seven satellites surrounding the*

Father's world are variously utilized in the different systems. In Satania they are now used as the detention spheres for the interned group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 constellation capital, Edentia, has no analogous prison worlds; the few seraphim and cherubim who went over to the rebels in the Satania rebellion have been long since confined on these isolation worlds of Jerusem.

45:1.11 (510.9) *As a sojourner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you have access to the seventh transition world, the spher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re also permitted to visit the Satania prison worlds surrounding this planet, whereon are now confined Lucifer and the majority of those personalities who followed him in rebellion against Michael. And this sad spectacle has been observable during these recent ages and will continue to serve as a solemn warning to all Nebadon until the Ancients of Days shall adjudicate the sin of Lucifer and his fallen associates who rejected the salvation proffered by Michael, their universe Father.

제 2 장. 체계 주권자

거주되는 세계들의 지역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1차 라노난덱 아들인 체계 주권자이다. 우리 지역우주 안에서는 이 주권자들이 큰 집행적 책임들, 비범한 개인적 특권들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오르본톤에서도, 체계 관련사들의 방향에 있어서 그러한 유별나게 광범위한 개인적인 사려 깊은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체계 주권자들에게 승인

2. THE SYSTEM SOVEREIGN

45:2.1 (511.1) *The chief executive of a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is a primary Lanonandek Son, the System Sovereign. In our local universe these sovereigns are intrusted with large executive responsibilities, unusual personal prerogatives. Not all universes, even in Orvonton, are so organized as to permit the System Sovereigns to

할 만큼 그렇게 모든 우주들이 조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바돈의 전체 역사 속에서, 속박 받지 않은 이 집행자들은 오직 세 번 불충성을 범하였다. 사타니아 체계에서의 루시퍼 반란은 가장 마지막 것이었고 전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었다.

사타니아에서는, 불운한 이 격변 이후에도, 체계 관리-행정의 기법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었다. 현재의 체계 주권자는 루시퍼의 후계자인 라나포지에게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아직 충분히 회복시켜주지 않은, 지금 별자리 아버지들의 감독 하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제외하고 그의 비열한 전임자에게 부여하였던 모든 힘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권한을 발휘하고 있다.

사타니아의 현재의 우두머리는 한 명의 품위 있고 명철한 통치자이며, 그는 반역의 가능성을 시험받은 주권자이다. 보조 체계 주권자로서 봉사할 때 라나포지는 네바돈 우주에서의 초기 격변에 있어서 미가엘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 막강하고 찬란한 사타니아 주님은 믿을만하고 시험을 받은 행정-관리자이다. 네바돈에서 두 번째 체계 반역이 있었을 때, 체계 주권자가 실족하여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하는 우두머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라나포지는 정부에 대한 고삐를 거머쥐고, 체계의 관련사들을 원활하게 지휘함으로써, 그리하여 불운한 체계의 본부 세계들 또는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비교적 적은 개인성들이 손실게 되었다. 라나포지는 네바돈 전체에서 유일한 1차 라노난텍 아들이 되는 시원성을 갖고 있는데 그는 미가엘에 대한 봉사 안에서 그리고 상급 권한과 선행 계급의 그의 형제의 불이행의 현존 안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활동하였다. 라나포지는 그 이전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들이 극복되고 반역의 산물들이 사타니아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예루셈에서 떠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의 모든 관련사들이 그의 관할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반면, 라나포지는 그들의 복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는 유란시아에 종종 방문하고 있다. 다른 정상적인 체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세계 통치자들, 행성영주들과 고립된 세계들의 거주 장관들의 체계 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행성 협의회는 때때로—“하느님의 아들이들 함께 올 때” 체계의 본부에서 모인다.

일주일에 한 번, 예루셈에서 매 10일마다, 주권자는 본부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개인성들로 구성된 어떤 한 집단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예루셈의 매우 흥미롭게 비공식적인 시간들이며, 그것들은 결코 잊혀 지지 않을 행사들이다. 예루셈에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이들 집단과 체계 주권자 사이에

exercise such unusually wide powers of personal discretion in the direction of system affairs. But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these untrammelled executives have exhibited disloyalty only three times. The Lucifer rebellion in the system of Satania was the last and the most widespread of all.

45:2.2 (511.2) In Satania, even after this disastrous upheaval, absolutely no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technique of system administration. The present System Sovereign possesses all the power and exercises all the authority that were invested in his unworthy predecessor except for certain matters now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which the Ancients of Days have not yet fully restored to Lanaforge, the successor of Lucifer.

45:2.3 (511.3) The present head of Satania is a gracious and brilliant ruler, and he is a rebellion-tested sovereign. When serving as an assistant System Sovereign, Lanaforge was faithful to Michael in an earlier upheaval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is mighty and brilliant Lord of Satania is a tried and tested administrator. At the time of the second system rebellion in Nebadon, when the System Sovereign stumbled and fell into darkness, Lanaforge, the first assistant to the erring chief, seized the reins of government and so conducted the affairs of the system that comparatively few personalities were lost either on the headquarters worlds or on the inhabited planets of that unfortunate system. Lanaforge bear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primary Lanonandek Son in all Nebadon who thus functioned loyally in the service of Michael and in the very presence of the default of his brother of superior authority and antecedent rank. Lanaforge will probably not be removed from Jerusem until all the results of the former folly have been overcome and the products of rebellion removed from Satania.

45:2.4 (511.4) While all the affairs of the isolated worlds of Satania have not been returned to his jurisdiction, Lanaforge discloses great interest in their welfare, and he is a frequent visitor on Urantia. As in other and normal systems, the Sovereign presides over the system council of world rulers, the Planetary Princes and the resident governors general of the isolated worlds. This planetary council assembles from time to time on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 “When the Sons of God come together.”

45:2.5 (511.5) Once a week, every ten days on Jerusem, the Sovereign holds a conclave with some one group of the various orders of personalities domiciled on the headquarters world. These are the charmingly informal hours of Jerusem, and they are never-to-be-forgotten occasions. On Jerusem there exists the utmost

최상의 형제우애관계가 존재한다.

독특한 이 집회들은 체계 수도의 거대한 집회 장소인 유리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순수하게 사회적이고 영적인 행사들이다; 행정 관리-행정 또는 상승 계획에 관계된 것들조차도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즐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동료 예루셈 거주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때 모이게 된다. 이 주간(週刊) 이완-휴식에서 주권자에 의해 접대를 받지 않는 집단들은 그들 자신의 본부에서 모인다.

제 3 장. 체계 정부

지역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 체계 주권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보좌관으로서 기능하는 둘 또는 세 명의 라노난텍 아들들의 후원을 항상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사타니아 체계가 일곱 라노난텍들로 구성된 한 참모진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1. 체계 주권자—라나포지, 1차 계층의 2,709 번 그리고 배신자 루시퍼의 후임자.

2. 주권자 첫 번째 보좌관 —만수로티아, 제3 라노난텍들의 17,841번. 그는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파견되었다.

3. 주권자 두 번째 보좌관—사디브, 제3 계층의 271,402번. 사디브 역시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4. 체계의 보호관리자—홀단트, 제3 무리단의 19번, 필사자 실존 위에 있는 모든 억류된 영들의 유지자 그리고 통제자. 홀단트도 마찬가지로 라나포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5. 체계 기록자—빌톤, 사타니아의 라노난텍 사명활동의 비서, 제3조직의 374번. 빌톤은 기원적 라나포지 집단의 일원이었다.

6. 증여 감독자—휘르탄트, 2차 라노난텍들로 구성된 예비자들의 319,847번이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예루셈에 옮겨진 모든 우주 활동들의 임시 감독자, 휘르탄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00년 동안 라나포지의 참모진에 배속되어 왔다.

7. 높은 조연자—하나바르드, 우주 조연자들 그리고 조화-협동자들의 고위 무리단의 일원이며 1차 라노난텍 아들들의 67번. 그는 사타니아의 집행 협의회의 대리 위원장이다. 하나바르드는 루시퍼 반란 이후 예루셈에서 봉사하기 위한 이 계층의 12번째이다.

fraternity between all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and between each of these groups and the System Sovereign.

45:2.6 (511.6) These unique assemblages occur on the sea of glass, the great gathering field of the system capital. They are purely social and spiritual occasions; nothing pertaining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or even to the ascendant plan is ever discussed. Ascending mortals come together at these times merely to enjoy themselves and to meet their fellow Jerusemites. Those groups which are not being entertained by the Sovereign at these weekly relaxations meet at their own headquarters.

3. THE SYSTEM GOVERNMENT

45:3.1 (512.1) The chief executive of a local system, the System Sovereign, is always supported by two or three Lanonandek Sons, who function as first and second assistants. But at the present time the system of Satania is administered by a staff of seven Lanonandeks:

45:3.2 (512.2) 1. *The System Sovereign* — Lanaforge, number 2,709 of the primary order and successor to the apostate Lucifer.

45:3.3 (512.3) 2. *The first assistant Sovereign* — Mansurotia, number 17,841 of the tertiary Lanonandeks. He was dispatched to Satania along with Lanaforge.

45:3.4 (512.4) 3. *The second assistant Sovereign* — Sadib, number 271,402 of the tertiary order. Sadib also came to Satania with Lanaforge.

45:3.5 (512.5) 4. *The custodian of the system* — Holdant, number 19 of the tertiary corps, the holder and controller of all interned spirits above the order of mortal existence. Holdant likewise came to Satania with Lanaforge.

45:3.6 (512.6) 5. *The system recorder* — Vilton, secretary of the Lanonandek ministry of Satania, number 374 of the third order. Vilton was a member of the original Lanaforge group.

45:3.7 (512.7) 6. *The bestowal director* — Fortant, number 319,847 of the reserves of the secondary Lanonandeks and temporary director of all universe activities transplanted to Jerusem since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Fortant has been attached to the staff of Lanaforge for nineteen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45:3.8 (512.8) 7. *The high counselor* — Hanavard, number 67 of the primary Lanonandek Sons and a member of the high corps of universe counselors and co-ordinators. He functions as acting chairman of the executive council of Satania. Hanavard is the twelfth of this order so to serve on Jerusem since the Lucifer rebellion.

일곱 라노난덱들로 구성된 이 집행 집단은 루시퍼 반란의 긴급성 때문에 필요하게 된 확대된 응급 관리-행정을 이룩한다. 예루셈에는 오직 하위 법정들만이 있는데 이것은 체계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행정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노난덱 관리-행정은 예루셈 집행협의회, 사타니아의 최고 자문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 협의회는 12명의 위원들로 구성 된다:

1. 하나바르드, 라노난덱 위원장.
2. 라나포지, 체계 주권자.
3. 만수로티아, 주권자 첫 번째 보좌관.
4. 사타니아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
5. 사타니아 생명운반자들의 대리감독자.
6. 사타니아 최종자의 우두머리.
7. 사타니아의 기원적 아담, 물질아들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8. 사타니아 세라핌천사 무리의 지도관.
9. 사타니아 물리통제자들의 우두머리.
10.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지도자.
11. 체계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대리 지도자.
12.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무리단의 대리 우두머리.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 있는 최고협의회에서 지역체계를 대표할 세 성원들을 주기적으로 선택하지만, 이 대표권은 반란 때문에 정지되었다. 사타니아는 지금 지역우주의 본부에 한 명의 관찰자를 갖고 있지만, 미가엘의 중여 이후로 체계는 에덴시아 입법부에 보낼 열 명의 성원들을 다시 선출해 왔다.

제 4 장. 4명과 20명의 조언자

예루셈에 있는 일곱 천사 거주 순환계들의 중앙에는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 24명의 조언자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계시자 요한은 그들을 24 장로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에 24 장로들이 앉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무리의 중앙에 있는 보좌는 주재하는 천사장의 재판석, 사타니아 전체를 향한 자비와 공의(公義)의 부활 점호의 보좌이다. 이 재판석은 항상 예루셈에 있어 왔지만, 둘러싼 24자리들은 그리스도 미가엘이

45:3.9 (512.9) This executive group of seven Lanonandeks constitutes the expanded emergency administration made necessary by the exigencie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re are only minor courts on Jerusem since the system is the unit of administration, not adjudication, but the Lanonandek administration is supported by the Jerusem executive council, the supreme advisory body of Satania. This council consists of twelve members:

- 45:3.10 (512.10) 1. Hanavard, the Lanonandek chairman.
- 45:3.11 (512.11) 2.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 45:3.12 (512.12) 3. Mansurotia, the first assistant Sovereign.
- 45:3.13 (512.13) 4. The chief of Satania Melchizedeks.
- 45:3.14 (512.14) 5. The acting director of the Satania Life Carriers.
- 45:3.15 (512.15) 6. The chief of the Satania finaliters.
- 45:3.16 (512.16) 7. The original Adam of Satania, the supervising head of the Material Sons.
- 45:3.17 (512.17) 8. The director of the Satania seraphic hosts.
- 45:3.18 (512.18) 9. The chief of the Satania physical controllers.
- 45:3.19 (512.19) 10. The director of the system Morontia Power Supervisors.
- 45:3.20 (513.1) 11. The acting director of system midway creatures.
- 45:3.21 (513.2) 12. The acting head of the corps of ascending mortals.

45:3.22 (513.3) This council periodically chooses three members to represent the local system on the supreme council at universe headquarters, but this representation is suspended by rebellion. Satania now has an observer at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but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the system has resumed the election of ten members to the Edentia legislature.

4.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45:4.1 (513.4) At the center of the seven angelic residential circles on Jerusem is located the headquarters of the Urantia advisory council,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John the Revelator called them the four and twenty elders: “And round about the throne were four and twenty seats, and upon the seats I saw four and twenty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aiment.” The throne in the center of this group is the judgment seat of the presiding archangel, the throne of the resurrection roll call of

네바돈의 충분한 주권자로 고양된 직후인 1,900년 전에야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24 조연자들은 예루셈에 있는 그의 개인적 대리자들이며, 그들은 사타니아의 점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체계의 고립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상승 계획의 다른 많은 단계들에서 주(主) 아들을 대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특별 요청과 미가엘의 특수한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리자들이다.

이들 4명과-20명의 조연자들은 유란시아의 여덟 종족들로부터 모집되었으며, 이 집단의 마지막은 1,900년 전 미가엘의 부활 점호 때에 가입되었다. 이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로 구성된다:

1. 오나가르, “호흡 수여자”에 대한 경배에서 자기 추종자들을 지도하였던, 행성영주-이전(以前) 시대의 주(主) 마음 소유자.

2. 맨산트, “위대한 빛”을 숭배하도록 자기 추종자들에게 지시하였던, 유란시아에서 행성영주 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

3. 오나모나론톤, 여러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영”을 숭배하도록 자기 종족들을 지도하였던 사람 그리고 적색 인종의 먼 옛날 영도자.

4. 올란도프, 청색인들의 한 영주였으며 “최극 우두머리”의 신성을 깨닫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영도자.

5. 포르슘타, 멸절된 오렌지색 인종의 예언자였고 “위대한 선생”에 대한 경배하는 일에서 이 민족의 영도자.

6. 싱글랑톤,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 대신에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한 황색들 중 첫 번째. 수천 년 전에 황색들은 유일한 하느님을 알고 있었다.

7. 환타드, 초록색 인종을 어둠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며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경배하는 일에서의 그들의 영도자.

8. 오르보논, 남색 종족들의 깨우치는 자이며, 한때 “하느님들의 하느님”에 대한 예배봉사를 이끈 그들의 영도자.

9. 아담,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격하되었지만, 구원되었고 나중에는 미가엘의 명령에 의해 이 위치로 상승된, 하느님의 물질아들인, 불신임 받은 그러나 다시 복귀된 유란시아의 행성 아버지.

10. 이브, 자기 배우자와 함께 불이행에 대한 벌을 받았고 그와 함께 다시 회복되어 생존된 필사자들의 이 집단과 함께 봉사하도록 배정된, 보

mercy and justice for all Satania. This judgment seat has always been on Jerusem, but the twenty-four surrounding seats were placed in position no more than nineteen hundred years ago, soon after Christ Michael was elevated to the full sovereignty of Nebadon. Thes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re his personal agents on Jerusem, and they have authority to represent the Master Son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 roll calls of Satania and in many other phases of the scheme of mortal ascension on the isolated worlds of the system. They are the designated agents for executing the special requests of Gabriel and the unusual mandates of Michael.

45.4.2 (513.5) These twenty-four counselors have been recruited from the eight Urantia races, and the last of this group were assembled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roll call of Michael,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is Urantia advisory council is made up of the following members:

45.4.3 (513.6) 1. *Onagar*, the master mind of the pre-Planetary Prince age, who directed his fellows in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45.4.4 (513.7) 2. *Masant*, the great teacher of the post-Planetary Prince age on Urantia, who pointed his fellows to the veneration of “The Great Light.”

45.4.5 (513.8) 3. *Onamonalonton*, a far-distant leader of the red man and the one who directed this race from the worship of many gods to the veneration of “The Great Spirit.”

45.4.6 (513.9) 4. *Orlandof*, a prince of the blue men and their leader in the recognition of the divinity of “The Supreme Chief.”

45.4.7 (513.10) 5. *Porshunta*, the oracle of the extinct orange race and the leader of this people in the worship of “The Great Teacher.”

45.4.8 (513.11) 6. *Singlangton*, the first of the yellow men to teach and lead his people in the worship of “One Truth” instead of many. Thousands of years ago the yellow man knew of the one God.

45.4.9 (513.12) 7. *Fantad*, the deliverer of the green men from darkness and their leader in the worship of “The One Source of Life.”

45.4.10 (513.13) 8. *Orvonon*, the enlightener of the indigo races and their leader in the onetime service of “The God of Gods.”

45.4.11 (514.1) 9. *Adam*, the discredited but rehabilitated planetary father of Urantia, a Material Son of God who was relegated to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who survived and was subsequently elevated to this position by the decree of Michael.

45.4.12 (514.2) 10. *Eve*, the mother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who suffered the penalty of default with her mate and was also rehabilitated with him and

라색 종족의 어머니.

11. 에녹, 육신 속에서의 필사자 삶을 사는 동안 생각 조절자와 결합된 유란시아의 필사자들 중 첫 번째.

12. 모세,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주 아버지에 대한 경배 회복의 선동자 그리고 가라앉은 보라색 인종 중, 남은 자를 해방 시킨 자.

13. 엘리야, 물질아들 이후-시대 동안의 빛나는 영적 성취로 옮겨진 혼.

14. 마키벤타 멜기세덱,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자신을 증여하는 이들 계층의 유일한 아들. 아직 멜기세덱 중의 하나였을 때, 그는 “언제까지나 지고자들의 사명활동자”가 되었는데, 하나의 필사자 상승자로서 봉사의 임무를 영원히 맡으며,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렘에서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형태로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체험한 세계의 실재적 행성영주인 미가엘을 대신하여, 예루셈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권한을 가진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로 최근에 임명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는 4명과 그리고 20명의 조언자로 구성된 회원들, 연속적인 거주 총독들에 의해 아직도 감독을 받고 있다.

15. 세례자 요한, 사람의 아들의 육신에서의 먼 친족,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임무의 선구자.

16. 1-2-3 첫째, 칼리가스티아 배반이 있었을 때 가브리엘의 봉사에 동참한 충성된 중도 창조체들의 영도자인데, 미가엘이 무조건적인 주권을 갖게 된 후에 곧 미가엘에 의해 이 위치로 상승되었음.

선택된 이 개인성들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한동안 상승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며,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더 이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17, 18, 19, 20번 자리는 영구적으로 차지되지 않는다. 그것들을 16명의 영구회원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유란시아에서의 현재 증여이후 아들 시대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나중에 배정되도록 열려져 있다.

21, 22, 23, 24번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현재 시대를 반드시 뒤따르게 될 다른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들의 위대한 선생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신성한 아들들의 예기치 않는 방문들과는 상관없이, 치안법관 아들들 그리고 교사 아들들의 시대, 그리고 빛과 생명의 세월이 유란시아에 예상되어 있다.

assigned to serve with this group of mortal survivors.

45:4.13 (514.3) 11. *Enoch*, the first of the mortals of Urantia to fuse with the Thought Adjuster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45:4.14 (514.4) 12. *Moses*, the emancipator of a remnant of the submerged violet race and the instigator of the revival of the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under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45:4.15 (514.5) 13. *Elijah*, a translated soul of brilliant spiritual achievement during the post-Material Son age.

45:4.16 (514.6) 14. *Machiventa Melchizedek*, the only Son of this order to bestow himself upon the Urantia races. While still numbered as a Melchizedek, he has become “forever a minister of the Most Highs,” eternally assuming the assignment of service as a mortal ascender, having sojourned on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t Salem in the days of Abraham. This Melchizedek has latterly been proclaimed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th headquarters on Jerusem and authority to act in behalf of Michael, who is actually the Planetary Prince of the world whereon he experienced his terminal bestowal in human form. Notwithstanding this, Urantia is still supervised by successive resident governors general, members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45:4.17 (514.7) 15. *John the Baptist*, the forerunner of Michael's mission on Urantia and, in the flesh, distant cousin of the Son of Man.

45:4.18 (514.8) 16. 1-2-3 *the First*, the leader of the loyal midway creatures in the service of Gabriel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betrayal, elevated to this position by Michael soon after his entrance upon unconditioned sovereignty.

45:4.19 (514.9) These selected personalities are exempt from the ascension regime for the time being, on Gabriel's request, and we have no idea how long they may serve in this capacity.

45:4.20 (514.10) Seats numbers 17, 18, 19, and 20 are not permanently occupied. They are temporarily filled by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sixteen permanent members, being kept open for later assignment to ascending mortals from the present postbestowal Son age on Urantia.

45:4.21 (514.11) Numbers 21, 22, 23, and 24 are likewise temporarily filled while being held in reserve for the great teachers of other and subsequent ages which undoubtedly will follow the present age. Eras of the Magisterial Sons and Teacher Sons and the ages of light and life are to be anticipated on Urantia, regardless of unexpected visitations of divine Sons which may

or may not occur.

제 5 장. 물질 아들

천상의 생명 중 큰 분과들은 예루셈에 그들의 본부와 거대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아들들, 높은 영들, 특급천사들, 천사들,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이 포함된다. 이 놀라운 구역의 중앙 거주지는 물질아들의 주요 성전이다.

아дам들의 권역은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력의 중심지이다. 그것은 1,000개의 중심들로 구성되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물질아들과 딸들의 각 가족은 그 구성원들이 우주의 진화 세계들에서 봉사하기 위해 출발할 때까지 또는 파라다이스-상승 생애를 착수할 때까지 가족 자체의 소유지에서 산다.

물질아들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훈련 구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性)으로-번식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물질적이다; 행성 아담과 이브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필사 종족에게 분명하게 보인다. 이 물질아들들은 위로는 신성과 완전성부터, 아래로는 인간성 그리고 물질적 실존에 이르기까지 개인성들의 고리 속에서 맨 마지막 물질적 고리이다. 이 아들들은 거주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영주와 영역의 물질 창조체 사이에 상호 접촉할 수 있는 중계를 제공한다.

구원자별에서의 1,000년 마다 등록이 최근에 있었을 때, 지역 체계 수도들에서 시민권 지위를 가진 물질아들과 딸이 네바돈에 161,432,840명 등록되었다. 물질아들의 숫자는 체계들마다 다르며, 그들의 숫자는 자연적인 번식에 의해 계속 증가한다. 그들의 번식 기능이 발휘됨에 있어서 그들은 접촉하는 개인성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인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통치 기관들과 자문 협의회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인도되지 않는다.

물질아들과 딸들은 예루셈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의 영구적인 거주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 구체의 지역 행정 속에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중도자들과 상승자들의 협조를 받아 모든 일상적인 관련사들을 실천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예루셈에서는 이 재생산하는 아들들이 멜기세덱들의 방법을 따라 자아-관리 이상을 실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그들은 매우 높은 유형의 사회를 성취하고 있다. 아들신분의 비교적 높은 계층들은 영역의 거부권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예루셈 아담-사람은 보편적인 투표권과 대표자 정부에 의해 스스로를 통치한다.

5. THE MATERIAL SONS

45:5.1 (514.12) The great divisions of celestial life have their headquarters and immense preserves on Jerusalem, including the various orders of divine Sons, high spirits, superangels, angels, and midway creatures. The central abode of this wonderful sector is the chief temple of the Material Sons.

45:5.2 (515.1) The domain of the Adams is the center of attraction to all new arrivals on Jerusalem. It is an enormous area consisting of one thousand centers, although each family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lives on an estate of its own up to the time of the departure of its members for service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or until their embarkation upon the Paradise-ascension career.

45:5.3 (515.2) These Material Sons are the highest type of sex-reproducing beings to be found on the training sphe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And they are really material; even the Planetary Adams and Eves are plainly visible to the mortal races of the inhabited worlds. These Material Sons are the last and physical link in the chain of personalities extending from divinity and perfection above down to humanity and material existence below. These Sons provide the inhabited worlds with a mutually contactable intermediary between the invisibl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realms.

45:5.4 (515.3) At the last millennial registration on Salvington there were of record in Nebadon 161,432,840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hip status on the local system capitals. The number of Material Sons varies in the different systems, and their number is being constantly increased by natural reproduction. In the exercise of their reproductive functions they are not guided wholly by the personal desires of the contacting personalities but also by the higher governing bodies and advisory councils.

45:5.5 (515.4) Thes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the permanent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its associated worlds. They occupy vast estates on Jerusalem and participate liberally in the local management of the capital sphere, administering practically all routine affairs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dwayers and the ascenders.

45:5.6 (515.5) On Jerusalem these reproducing Sons are permitted to experiment with the ideals of self-government after the manner of the Melchizedeks, and they are achieving a very high type of society. The higher orders of sonship reserve the veto functions of the realm, but in nearly every respect the Jerusalem Adamites govern themselves by universal suffrage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언젠가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질아들들의 봉사의 성격은 주로 그들의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물질적이며 보통은 특정 행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구원자별의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들은 물질아들의 나이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 각 체계 본부에 우수한 선생들로 구성된 교수진을 유지한다. 나이 어린 물질아들과 딸들의 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그리고 영적 훈련 체계들은 기회와 기술과 실천성에 있어서 완전함의 절정이다.

제 6 장. 상승자들에 대한 아담의 훈련

물질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반드시 주의를 끌게 하고 호기심이 발동되게 하는 매력 있는 장면을 제공한다. 그들은 너희 자신의 물질적인 성(性) 종족들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공통되는 흥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형제우애의 접촉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필사자 생존자들은 우월한 이 반(半) 육체적 성 창조체들의 삶의 습관과 행위성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체계 수도에서의 자유시간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예루셈의 이 시민들은 그들이 본부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을 때부터 에덴시아를 향해 그들이 떠날 때까지 필사자 생존자들의 직접적인 후원자이며 교사이기 때문이다.

일곱 맨션세계들에서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자신들이 기원된 세계들에서 고난을 당하였던 모든 체형적 궁핍성을 보상받기 위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유전적인, 환경적인, 또는 육신으로서의 삶의 불행한 초기 사망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체형적 박탈을 메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필사자의 성(性) 생활과 그것에 따른 조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미에서 진실이다. 수많은 필사자들이 그들의 출생 구체에서의 비교적 평균적인 성(性)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단련으로부터 특별한 유익이 없이 맨션세계에 도착한다. 맨션세계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이러한 박탈을 메우기 위한 기회를 거의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성(性)에 따른 체험이 이 상승자들에게는 지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물질아들과 딸들과의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의 일원들로서의 긴밀한 관계적-연합 안에서, 이들 성(性)-결핍된 필사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의 결핍을 메울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진화세계에서의 유익한 성(性) 관계적-연합의 혜택을 박탈당한 그들 인간 모두에게는 체계 수도에 있는 영구 거주자인 천상의 아담의과 같은 성(性) 창조체와의 가깝고도 사랑하는 관계적-연합 안에

Sometime they hope to be granted virtually complete autonomy.

45:5.7 (515.6) The character of the service of the Material Sons is largely determined by their ages. While they are not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Melchizedek University of Salvington — being material and ordinarily limited to certain planets — nevertheless, the Melchizedeks maintain strong faculties of teachers on the headquarters of each system for the instruc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of Material Sons. The educational and spiritual training systems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younger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the acme of perfection in scope, technique, and practicability.

6. ADAMIC TRAINING OF ASCENDERS

45:6.1 (515.7)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present an engaging spectacle which never fails to arouse the curiosity and intrigue the attention of all ascending mortals. They are so similar to your own material sex races that you both find much of common interest to engage your thoughts and occupy your seasons of fraternal contact.

45:6.2 (515.8) Mortal survivors spend much of their leisure on the system capital observing and studying the life habits and conduct of these superior semiphysical sex creatures, for these citizens of Jerusem are the immediate sponsors and mentors of the mortal survivors from the time they attain citizenship on the headquarters world until they take leave for Edentia.

45:6.3 (516.1) On the seven mansion worlds ascending mortals are afforded ample opportunities for compensating any and all experiential deprivations suffered on their worlds of origin, whether due to inheritance, environment, or unfortunat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career in the flesh. This is in every sense true except in the mortal sex life and its attendant adjustments. Thousands of mortals reach the mansion worlds without having benefited particularly from the disciplines derived from fairly average sex relations on their native spheres. The mansion world experience can provide little opportunity for compensating these very personal deprivations. Sex experience in a physical sense is past for these ascenders, but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both individually and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se sex-deficient mortals are enabled to compensate the social,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aspects of their deficiency. Thus are all those humans whom circumstances or bad judgment deprived of the benefits of advantageous sex associati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here on the system capitals

서, 이들 필수적인 필사자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체계 수도에서 주어진다.

생존된 필사자, 중도자, 또는 세라핌천사는 세계들의 진화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를 성취하는 고귀한 체험 또는 그것과 유사하고 동등한 다른 체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 없고 아버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최종의 무리단에 들어갈 수 없다.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는 우주 아버지와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체험은 모든 상승자들의 체험적 훈련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된다.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과 진화 세라핌천사들은 체계 본부의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과 관계적-연합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이 체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산하지 않는 그러한 상승자들은 예루셈 아담들과 이브들의 자손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그들을 도움으로써 부모로서의 체험을 성취한다.

진화적인 세계들에서 부모 관계를 체험하지 않은 모든 필사자 생존자들은 예루셈 물질아들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뛰어난 이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부모 연관-동료들로서 필수적인 이 훈련 역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필사자들이 예루셈의 첫 번째 과도기-문화 세계에 있는 체계 유치원에서 그들의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이 적용된다.

사타니아의 이 실습 유치원은 자녀를 기르는 이 일에 헌신되어 있는 행성의 절반인, 최종자 세계에서 특정한 모론시아 개인성들에 의해 운영된다. 생존되는 필사자들의 어떤 자녀들이 여기에 받아들여지고 집합되는데, 개별존체들로서의 영적 상태를 획득하기 전에 진화 세계들에서 죽은 그 자녀들이 해당된다. 자연적인 부모들 중 어느 쪽이든 상승하면 영역들의 그러한 필사자 자녀는 체계 최종자 행성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도록 허용되고 필사자의 상승에 있어서의 부모의 경로를 따르기로 그가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에 상관없이 그 이후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 실증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허락을 받는 것을 보장한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성적(性的) 구별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태어난 세계에서와 똑같이 출현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의 삶의 체험 이후에는 필사자와 비슷한 번식은 거기에 없다.

최종자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을 가졌던, 그리고 기본적인 아버지의 체험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맨션세계 학생들은, 맨션세계들에서의 상승 임무들로부터 최종자 세계로 잠시 그들이 옮겨질 수 있게 하는 허락을 멜키세덱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afforded full opportunity to acquire these essential mortal experiences in close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supernal Adamic sex creatures of permanent residence on the system capitals.

45:6.4 (516.2) No surviving mortal, midwayer, or seraphim may ascend to Paradise, attain the Father, and be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without having passed through that sublime experience of achieving parental relationship to an evolving child of the worlds or some other experience analogous and equivalent thereto. The relationship of child and parent is fundamental to the essentia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universe children. Therefore does such an experience become indispensable to the experiential training of all ascenders.

45:6.5 (516.3) The ascending midway creatures and the evolutionary seraphim must pass through this parenthood experience in association with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us do such nonreproducing ascenders obtain the experience of parenthood by assisting the Jerusem Adams and Eves in rearing and training their progeny.

45:6.6 (516.4) All mortal survivors who have not experienced parenthood on the evolutionary worlds must also obtain this necessary training while sojourning in the homes of the Jerusem Material Sons and as parental associates of these superb fathers and mothers. This is true except in so far as such mortals have been able to compensate their deficiencies on the system nursery located on the first transitional-culture world of Jerusem.

45:6.7 (516.5) This probation nursery of Satania is maintained by certain morontia personalities on the finaliters' world, one half of the planet being devoted to this work of child rearing. Here are received and reassembled certain children of surviving mortals, such as those offspring who perish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before acquiring spiritual status as individuals. The ascension of either of its natural parents insures that such a mortal child of the realms will be accorded repersonalization on the system finaliter planet and there be permitted to demonstrate by subsequent freewill choice whether or not it elects to follow the parental path of mortal ascension. Children here appear as on the nativity world except for the absence of sex differentiation. There is no reproduction of mortal kind after the life experience on the inhabited worlds.

45:6.8 (517.1) Mansion world students who have one or more children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s' world, and who are deficient in essential parental experience, may apply for a Melchizedek permit which will effect their temporary transfer from ascension duties on the mansion worlds to the finaliter world, where they are granted

연관-동료 부모들로서 기능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아버지의 사명활동의 이 봉사는 그러한 상승자들이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가족들 안에서 체험하도록 요구되는 그 훈련의 절반을 성취한 것으로서 예루셈에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실습 유치원 자체는 1,000쌍의 물질아들들과 딸들에 의해 관리되는데, 그들은 그들 조직의 예루셈 거류민단으로부터 자원한 자들이다. 사타니아의 아(亞)중간 세계로부터 구원자별의 최종자구체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유보된 특별 세계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그들의 길에서 이 봉사를 하기 위해 여기에 멈춘 동일한 숫자의 자원자 아(亞)중간 부모 집단이 즉시 그들에게 협조한다.

제 7 장. 멜기세덱 학교

멜기세덱들은 예루셈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세계들 그러나 특별히 일곱 맨션세계들에서 매우 훌륭하게 기능하는 큰 무리단의 강사들—부분적으로 영성화된 의지적 창조체들과 다른 존재들—의 지도자들이다. 이곳들은 억류하는 행성들인데, 그곳에서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융합을 성취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과도기 형태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 달성을 위한 그들의 분투, 죽음에 의해 미숙하게 중단된 바로 저들 노력들을 계속할 수 있는 확장된 기회를 누리려고 복귀되는 곳이다. 또는 만일 유전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환경 또는 환경들의 상황 때문에 이 혼(魂) 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유야 어떠하였든지 목적이 참되고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들을 발견하며, 있는 그대로, 계속되는 행성들 위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애의 기본들을 통달하는 것, 그들이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에 획득 할 수 없었던지 아니면 하지 않았던 특색들을 소유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찬란한 저녁별들(그리고 그들의 이름없는 조화-협동자)들은 멜기세덱들에 의해 후원을 받는데 그들을 포함하여, 우주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에서 선생들로서 자주 봉사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도 그렇게 하며, 그들은 진보적인 이 훈련 학교들에게 파라다이스 완전의 촉감을 나누어 준다. 그러나 이 활동들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증진에만 배타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것들은 네바돈의 토착 영 개인성들의 진보적 훈련에도 똑같이 종사하고 있다.

멜기세덱 아들들은 예루셈에 있는 서로 다른 30개 교육 중심들을 위쪽 방향으로 지휘한다. 이 훈련 학교들은 자아-평가의 대학으로 시작하고 예루셈 시민권의 학교로 끝나는데, 그곳에서는 물질

opportunity to function as associate parents to their own and other children. This service of parental ministry may be later accredited on Jerusalem as the fulfillment of one half of the training which such ascenders are required to undergo in the familie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45:6.9 (517.2) The probation nursery itself is supervised by one thousand couple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volunteers from the Jerusalem colony of their order. They are immediately assisted by about an equal number of volunteer midsonite parental groups who stop off here to render this service on their way from the midsonite world of Satania to the unrevealed destiny on their special worlds of reservation among the finaliter spheres of Salvington.

7. THE MELCHIZEDEK SCHOOLS

45:7.1 (517.3) The Melchizedeks are the directors of that large corps of instructors — partially spiritualized will creatures and others — who function so acceptably on Jerusalem and its associated worlds but especially on the seven mansion worlds. These are the detention planets, where those mortals who fail to achieve fusion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are rehabilitated in transient form to receive further help and to enjoy extended opportunity for continuing their strivings for spiritual attainment, those very efforts which were prematurely interrupted by death. Or if, for any other reason of hereditary handicap, unfavorable environment, or conspiracy of circumstances, this soul attainment was not completed, no matter what the reason, all who are true of purpose and worthy in spirit find themselves, as themselves, present on the continuing planets, where they must learn to master the essentials of the eternal career, to possess themselves of traits which they could not, or did not, acquire during the lifetime in the flesh.

45:7.2 (517.4)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nd their unnamed co-ordinates) frequently serve as teachers in the various educational enterprises of the universe, including those sponsored by the Melchizedeks. Also do the Trinity Teacher Sons collaborate, and they impart the touches of Paradise perfection to these progressive training schools. But all these activities are not exclusively devoted to the advancement of ascending mortals; many are equally occupied with the progressive training of the native spirit personalities of Nebadon.

45:7.3 (517.5) The Melchizedek Sons conduct upward of thirty different educational centers on Jerusalem. These training schools begin with the college of self-evaluation and end with the schools of Jerusalem citizenship, wherein the Material Sons

아들들과 딸들은 대리 정부의 높은 의무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려는 그들의 최극의 노력에서 멜기세덱들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연관한다. 전체 우주는 대표적인 계획에 따라 조직되고 운용 관리-운영된다. 대의 정치는 비(非)완전 존재들 사이에 있는 자치-정부의 신성한 이상이다.

우주 시간으로 100년마다 각 체계는 별자리 입법부에 참여할 10명의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그들은 1,000명의 예루셈 협의회에 의해, 이양되거나 지정된 그러한 모든 사안에서 체계 집단을 대표하는 임무를 지닌 선출기관으로 선택된다. 모든 대표자들 또는 다른 사절단들은 1,000명의 선거인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은 가장 높은 학교인 멜기세덱 관리-행정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데, 1,000명의 선거인 집단을 구성하는 이들 모두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육성되는데, 최근에는 최종자가 돕고 있다.

예루셈에는 많은 선거 기관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때때로 시민권을 가진 세 계층들—물질아들들과 딸들,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 중도 창조체들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피선되어 권한을 갖는다. 대표자 지위에 지명되기 위하여 후보자는 멜기세덱 관리-행정 학교들로부터 필수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하다.

예루셈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이 세 집단들 사이에 선거권이 보편적인 것이지만, 투표는 모타—모론시아 지혜—에 대한 인정되고 등록된 개인적 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행해진다. 어떤 한 개인성에 의한 예루셈에서의 투표는 하나부터 1,000개에 이르는 범위의 가치를 갖는다. 예루셈 시민들은 그들의 모타 성취도에 따라 그렇게 분류된다.

예루셈 시민들은 때때로 멜기세덱 시험관들에게 자신을 보이는데, 그들은 모론시아 지혜에 대한 그들의 달성도를 증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험하는 무리단 앞으로 가는데, 그들은 영 통찰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24 조연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 현존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회화에 대한 체험적 달성의 그들의 지위를 승인한다. 이 세 요소들은 그 다음에 대리 정부의 시민권 등록자에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모타 지위를 재빨리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선거권의 분별된-자격을 배정한다.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특별히 새로운 모론시아 차원들에서 그들의 개인성 통일을 더디게 이룩한 그들은, 물질아들들에 의해 돌봄을 받으며 그러한 결손을 교정하도록 고안된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상승하는

and Daughters join with the Melchizedeks and others in their supreme effort to qualify the mortal survivors for the assumption of the high responsibiliti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entire universe is organized and administered on the representative plan.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the divine ideal of self-government among nonperfect beings.

45.7.4 (517.6) Every one hundred years of universe time each system selects its ten representatives to sit in the constellation legislature. They are chosen by the Jerusalem council of one thousand, an elective body charged with the duty of representing the system groups in all such delegated or appointive matters. All representatives or other delegates are selected by the council of one thousand electors, and they must be graduates of the highest school of the Melchizedek College of Administration, as also are all of those who constitute this group of one thousand electors. This school is fostered by the Melchizedeks, latterly assisted by the finaliters.

45.7.5 (518.1) There are many elective bodies on Jerusalem, and they are voted into authority from time to time by three orders of citizenship —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including midway creatures, and the ascending mortals. To receive nomination for representative honor a candidate must have gained requisite recognition from the Melchizedek schools of administration.

45.7.6 (518.2) Suffrage is universal on Jerusalem among these three groups of citizenship, but the vote is differentially cast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and duly registered personal possession of mota — morontia wisdom. The vote cast at a Jerusalem election by any one personality has a value ranging from one up to one thousand. Jerusalem citizens are thu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ir mota achievement.

45.7.7 (518.3) From time to time Jerusalem citizens present themselves to the Melchizedek examiners, who certify to their attainment of morontia wisdom. Then they go before the examining corp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or their designates, who ascertain the degree of spirit insight. Next they appear in the presence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nd their associates, who pass upon their status of experiential attainment of socialization. These three factors are then carried to the citizenship registrar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who quickly compute the mota status and assign suffrage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therewith.

45.7.8 (518.4)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the ascending mortals, especially those who are tardy in their personality unification on the new morontia levels, are taken in hand by the Material Sons and are given intensive training

필사자들은 이 물질아들들이 모타 개인성—생각 조절자의 영적 전반적-통제에 의해 둘 모두 정당하게 섞인, 짝트리 시작하는 모론시아 생애와 체험적으로 관계적-연합 속에 완성된 필사자 실존을 혼합하는 개별성—의 성취를 보증할 때까지 별자리의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사회화 생애를 위해 체계 본부를 떠날 수 없다.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designed to rectify such deficiencies. No ascending mortal leaves the system headquarters for the more extensive and varied socialization career of the constellation until these Material Sons certify to the achievement of mota personality — an individuality combining the completed mortal existence in experiential association with the budding morontia career, both being duly blended by the spiritual overcontrol of the Thought Adjuster.

45:7.9 (518.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temporary assignment on Urantia.]

제 46 편 지역체계 본부

⇨ 045

유랜시아 책

047 ⇨

부 II. 지역우주

제 46 편 지역체계 본부

섹션

소개

제 1 장.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제 2 장. 예루셈의 물리적 특성

제 3 장. 예루셈 방송

제 4 장. 거주지와 행정 지역

제 5 장. 예루셈 순환계

제 6 장. 집행-행정 정사각형

제 7 장.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제 8 장. 예루셈 삼각형

PAPER 46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Aspects of Jerusem

2. Physical Features of Jerusem

3. The Jerusem Broadcasts

4.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5. The Jerusem Circles

6. The Executive-Administrative Squares

7. The Rectangles — The Spornagia

8. The Jerusem Triangles

소개

사타니아의 수도인 예루셈은 한 지역 체계의 표준적인 수도이며, 루시퍼 반란과 유랜시아에 대한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야기된 수많은 불규칙성들을 제외하면, 그것은 유사한 구체들 중에서 전형적인 상태에 있다. 너희의 지역체계는 폭풍우와 같은 어떤 체합들을 거쳐 왔지만, 지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시대들이 지나감에 따라, 부조화의 결과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근절되어가고 있다. 질서와 선한 뜻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루셈의 환경들은 너희에게 구전(口傳)된 천상의 지위들로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체계 본부가 20 세기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상상하는 천국과 같기 때문이다.

INTRODUCTION

46:0.1 (519.1) JERUSEM, the headquarters of Satania, is an average capital of a local system, and aside from numerous irregularities occasioned by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it is typical of similar spheres. Your local system has passed through some stormy experiences, but it is at present being administered most efficiently, and as the ages pass, the results of disharmony are being slowly but surely eradicated. Order and good will are being restored, and the conditions on Jerusem are more and more approaching the heavenly status of your traditions, for the system headquarters is truly the heaven visualized by the majority of twentieth-century religious believers.

제 1 장.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緯度) 부분들로 그리고 10,000개의 경도(經度) 구역들로 나뉘어 있다. 구체는 7개 주요 수도들과 70개의 보조 행정-

1. PHYSICAL ASPECTS OF JERUSEM

46:1.1 (519.2) Jerusem is divided into one thousand latitudinal sectors and ten thousand longitudinal zones. The sphere has seven major capitals and

관리적 중심들을 갖고 있다. 7개의 구역 본부들은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체계 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그 각각을 방문한다.

예루셈의 표준 거리 1마일은 유란시아의 약 7마일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래던트”는 성숙된 극자로부터 10진법 소수의 체계를 통해 형성되며 너희의 무게 단위의 10온스를 거의 정확하게 대표한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3일과 같으며, 예루셈을 축으로 도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로 구성된다. 체계의 시간은 주(主) 크로놀렉들에 의해 방송되어진다.

예루셈의 에너지는 구역 경로들 안에서 훌륭하게 통제되고 구체를 회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주의 에너지 충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고 주(主)물리통제자들에 의해 노력하게 운용 관리-운영된다.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는 물리적 계통들을 두루 통하여, 이들 에너지의 통과에 대한 자연적 저항은 예루셈의 균등한 온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열을 산출한다. 빛이 충만할 때 온도는 약 화씨 70도를 유지하는 반면, 빛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에는 50도 미만으로 떨어진다.

예루셈의 빛 체계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덥고 추운 계절도 없다. 힘 변환자들이 100,000개의 중심들을 유지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심원한 에너지들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구체의 전기적 대기-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 대기를 통해 위로 구체적으로 투사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들은 태양이 아침 10시경에 위에서 비출 때 유란시아 태양의 강도와 비슷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평온한 빛으로서 반영되어 내려온다.

그러한 빛의 조건 아래에서, 그 광선들은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모든 우주 방향으로부터 동일하게 발산되면서 하늘에서 뿌려지는 것과 같다. 이 빛은 비교적 매우 적은 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자연적인 태양광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본부 세계들이 우주에서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만일 예루셈이 유란시아에 매우 근접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루셈 위쪽 전리층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빛-에너지를 반영하는 기체들은 너희가 소위 북쪽의 빛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현상들이 다른 이유들에 의해 산출된다 하더라도 그것들과 관계되는 유란시아의 위쪽 대기층들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유란시아에서 지상 방송과 동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기체막인데, 그것들이 똑바로 밖을 향해 날아가다가 이 기체층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지구

seventy minor administrative centers. The seven sectional capitals are concerned with diverse activities, and the System Sovereign is present in each at least once a year.

46:1.2 (519.3) The standard mile of Jerusem is equivalent to about seven Urantia miles. The standard weight, the “gradant,” is built up through the decimal system from the mature ultimatons and represents almost exactly ten ounces of your weight. The Satania day equals three days of Urantia time, less one hour, four minutes, and fifteen seconds, that being the time of the axial revolution of Jerusem. The system year consists of one hundred Jerusem days. The time of the system is broadcast by the master chronoldeks.

46:1.3 (519.4) The energy of Jerusem is superbly controlled and circulates about the sphere in the zone channels, which are directly fed from the energy charges of space and expertly administered by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natural resistance to the passage of these energies through the physical channels of conduction yields the heat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the equable temperature of Jerusem. The full-light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about 70 degrees Fahrenheit, while during the period of light recession it falls to a little lower than 50 degrees.

46:1.4 (519.5) The lighting system of Jerusem should not be so difficult for you to comprehend. There are no days and nights, no seasons of heat and cold. The power transformers maintain one hundred thousand centers from which rarefied energies are projected upward through the planetary atmosphere, undergoing certain changes, until they reach the electric air-ceiling of the sphere; and then these energies are reflected back and down as a gentle, sifting, and even light of about the intensity of Urantia sunlight when the sun is shining overhead at ten o'clock in the morning.

46:1.5 (520.1) Under such conditions of lighting, the light rays do not seem to come from one place; they just sift out of the sky, emanating equally from all space directions. This light is very similar to natural sunlight except that it contains very much less heat. Thus it will be recognized that such headquarters worlds are not luminous in space; if Jerusem were very near Urantia, it would not be visible.

46:1.6 (520.2) The gases which reflect this light-energy from the Jerusem upper ionosphere back to the ground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the Urantia upper air bel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auroral phenomena of your so-called northern lights, although these are produced by different causes. On Urantia it is this same gas shield which prevents the escape of the terrestrial broadcast waves, reflecting them earthward when

쪽으로 반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들이 너희 세계를 둘러싼 공기를 통과하면서 표면 가까이에 방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구체의 이 빛은 예루셈 하루의 75% 동안 한결같이 유지되며, 그 다음에는 최소 밝기가, 청명한 날 밤에 너희에게 보름달이 떴을 때와 비슷한 빛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때는 예루셈 전체에서 고요한 시간이다. 오직 방송-수신소만이 휴식과 복귀의 이 기간 동안 운용 중에 있다.

예루셈은 근처에 있는 여러 태양들로부터 희미한 빛—빛나는 별빛과 같은—을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으며, 예루셈과 같은 세계들은 태양 교란의 변화에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아가거나 죽어가는 태양의 문제들과도 상관이 없다.

일곱 과도기 연구 세계들과 그것들의 49개 위성들은 예루셈 기법에 의해 열과 빛과 에너지와 물을 공급받는다.

제 2 장. 예루셈의 물리적 특성

예루셈에서 너희는 그곳이 지진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 그리고 다른 진화된 세계들의 울퉁불퉁한 산맥들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아름다운 고지대들과 기타 독특하게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즐기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이 “자연적인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들의 풍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초월한다.

거기에는 수많은 작은 호수들이 있지만 세계 흐르는 강들도 없고 광대한 바다들도 없다. 고안건축의 세계들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의 감소에 수반되는 최저 온도의 기간 동안 습기 응축의 강우(降雨)가 매일 발생된다(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유란시아와 같은 두-기체 행성보다 세-기체 세계에서 더 높다.). 물리적인 식물 생명 그리고 모론시아 세계 생명은 둘 모두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구체 전체에 해당하는, 심지어 고지대들의 최고 높은 곳까지 이르는 순환 하층토(下層土) 체계에 의해 주로 공급된다. 이 물 체계는 전반적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짝이는 예루셈의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수로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셈의 대기는 3-기체 혼합이다. 이 공기는 모론시아 생명 조직의 호흡에 적당한 기체를 포함한 유란시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 번째 기체는 물질적인 계층을 갖는 동물 또는 식물의 호흡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적당하다.

교통 체계는 에너지 이동의 순환 흐름들과 결

they strike this gas belt in their direct outward flight. In this way broadcasts are held near the surface as they journey through the air around your world.

46:1.7 (520.3) This lighting of the sphere is uniformly maintained for seventy-five per cent of the Jerusem day, and then there is a gradual recession until, at the time of minimum illumination, the light is about that of your full moon on a clear night. This is the quiet hour for all Jerusem. Only the broadcast-receiving stations are in operation during this period of rest and rehabilitation.

46:1.8 (520.4) Jerusem receives faint light from several near-by suns — a sort of brilliant starlight — but it is not dependent on them; worlds like Jerusem are not subject to the vicissitudes of sun disturbances, neither are they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a cooling or dying sun.

46:1.9 (520.5) The seven transitional study worlds and their forty-nine satellites are heated, lighted, energized, and watered by the Jerusem technique.

2. PHYSICAL FEATURES OF JERUSEM

46:2.1 (520.6) On Jerusem you will miss the rugged mountain ranges of Urantia and other evolved worlds since there are neither earthquakes nor rainfalls, but you will enjoy the beauteous highlands and other unique variations of topography and landscape. Enormous areas of Jerusem are preserved in a “natural state,” and the grandeur of such districts is quite beyond the powers of human imagination.

46:2.2 (520.7)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mall lakes but no raging rivers nor expansive oceans. There is no rainfall, neither storms nor blizzards, on any of the architectural worlds, but there is the daily precipitation of the condensation of moisture during the time of lowest temperature attending the light recession. (The dew point is higher on a three-gas world than on a two-gas planet like Urantia.) The physical plant life and the morontia world of living things both require moisture, but this is largely supplied by the subsoil system of circulation which extends all over the sphere, even up to the very tops of the highlands. This water system is not entirely subsurface, for there are many canals interconnecting the sparkling lakes of Jerusem.

46:2.3 (520.8) The atmosphere of Jerusem is a three-gas mixture. This air is very similar to that of Urantia with the addition of a gas adapted to the respiration of the morontia order of life. This third gas in no way unfits the air for the respiration of animals or plants of the material orders.

46:2.4 (521.1) The transportation system is allied with

연되어 있는데, 이 주요 에너지 흐름들은 10마일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물리적 기능구조들의 조절에 의해 행성의 물질적 존재들은 시간당 2 백에서 5 백 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용 새들은 한 시간에 100 마일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 물질아들들의 공중 기능구조 장치들은 시간당 약 500 마일을 여행할 수 있다. 물질적 존재 그리고 초기 모론시아 존재들은 이 기계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되지만, 영 개인성들은 에너지의 상급 기체와 그리고 영 근원들과 연락함으로써 움직인다.

예루셈과 그것에 연관된 세계들은 네바돈의 고안건축 구체의 물리적 생명 특징을 가진 10개의 표준 분야들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셈에서는 유기체적 진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생명 형태들이 없고, 실존을 위한 투쟁도 없으며, 적자생존도 없다. 오히려 거기에는 중앙 그리고 신성한 우주의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완전을 예시하는 창조적 적응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적 완전 속에는 천상의 거장과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예술적으로 대조를 이룬 물리적 그리고 모론시아 생명의 가장 놀라운 혼합이 존재한다.

예루셈은 정말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영광과 장엄함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너희는 설명을 통해서라도 이 영화로운 고안건축의 세계들에 대한 적당한 개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너희들 세계에는 조금이라도 비교될 만한 것이 없으며, 예루셈의 물체들조차도 유란시아의 물체들을 너무나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괴상망측하다. 너희가 실제로 예루셈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천상의 세계들에 대한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간직할 수 없지만, 체계 수도에서 너희가 갖게 되는 체험이 우주와 초우주 그리고 하보나의 보다 먼 훈련 구체에 너희가 언젠가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미래에서 그리 오랜 기간도 아니다.

예루셈의 제조 또는 실험 권역은 하나의 광대한 영토인데, 거기에는 연기가 나는 굴뚝이 없기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 세계들과 연관된 복잡한 물질적 경제가 존재하며, 너희들 가운데 가장 체험이 많은 화학자들과 발명가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경이롭게 만들 기계적인 기법과 물리적 성취들의 완전이 거기에 있다. 파라다이스 여행에 있어서 억류하는 이 첫 세계가 영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 보자. 예루셈 그리고 그것의 과도기 세계들에서 너희가 머무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너희는 진보하는 영 실존의 너희 후대 삶보다는 물질적 물체들과 함께 한 지구상에서의 너희 삶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세라핌천사 산(山)이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데, 거의 15,000피트에 이르며, 모든 운송 세라핌천사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행성 중력을 탈피하기

the circulatory streams of energy movement, these main energy currents being located at ten-mile intervals. By adjustment of physical mechanisms the material beings of the planet can proceed at a pace varying from two to five hundred miles per hour. The transport birds fly at about one hundred miles an hour. The air mechanisms of the Material Sons travel around five hundred miles per hour. Material and early morontia beings must utilize these mechanical means of transport, but spirit personalities proceed by liaison with the superior forces and spirit sources of energy.

46:2.5 (521.2) Jerusalem and its associated worlds are endowed with the ten standard divisions of physical life characteristic of the architectural spheres of Nebadon. And since there is no organic evolution on Jerusalem, there are no conflicting forms of life, no struggle for existence, no survival of the fittest. Rather is there a creative adaptation which foreshadows the beauty, the harmony, and the perfection of the eternal worlds of the central and divine universe. And in all this creative perfection there is the most amazing intermingling of physical and of morontia life, artistically contrasted by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ir fellows.

46:2.6 (521.3) Jerusalem is indeed a foretaste of paradisiacal glory and grandeur. But you can never hope to gain an adequate idea of these glorious architectural worlds by any attempted description. There is so little that can be compared with aught on your world, and even then the things of Jerusalem so transcend the things of Urantia that the comparison is almost grotesque. Until you actually arrive on Jerusalem, you can hardly entertain anything like a true concept of the heavenly worlds, but that is not so long a time in the future when your coming experience on the system capital is compared with your sometime arrival on the more remote training spheres of the universe, the superuniverse, and of Havona.

46:2.7 (521.4) The manufacturing or laboratory sector of Jerusalem is an extensive domain, one which Urantians would hardly recognize since it has no smoking chimneys; nevertheless, there is an intricate material economy associated with these special worlds, and there is a perfection of mechanical technique and physical achievement which would astonish and even awe your most experienced chemists and inventors. Pause to consider that this first world of detention in the Paradise journey is far more material than spiritual. Throughout your stay on Jerusalem and its transition worlds you are far nearer your earth life of material things than your later life of advancing spirit existence.

46:2.8 (521.5) Mount Seraph is the highest elevation on Jerusalem, almost fifteen thousand feet, and is the point of departure for all transport seraphim.

위한 그리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에너지 공급에 수많은 기계적 개발품들이 이용된다. 세라핌천사의 운송은 낮 시간에 두루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빛이 줄어드는 깊은 밤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출발한다. 운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매초 25 표준 마일로 출발하며 예루셈으로부터 2,000마일을 지나갈 때까지는 표준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운송자들은 수정 별판에 도착하는데, 유리 바다 라고 불린다. 이 지역 근처에는 세라핌천사 운송체에 의해 우주를 건너가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학생 방문자들을 받아들이는 수정 같은 극 지점 가까이에서 너희는 진주처럼 생긴 관측소로 올라갈 수 있으며 전체 본부 행성의 거대한 부조(浮彫)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예루셈 방송

초우주 그리고 파라다이스-하보나 방송들은 극 수정, 유리 바다를 포함하는 기법에 의해 그리고 구원자별과 관계하여 예루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 임시-네바돈 통신들을 접수-수신을 위한 준비 이외에, 구별된 세 계 집단의 수신소들이 있다. 분리되었지만 삼중-순환 집단의 이 장소들은 지역 세계들로부터, 별자리 본부들로부터 그리고 지역 우주의 본부로부터 오는 방송의 접수활동에 조절되어 있다. 이 모든 방송들은 중앙 방송 극장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존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상연된다;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위한 모든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도, 우주 공간 보고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흐름들에서 들려지는 그것보다 더 매력이 있거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 예루셈 방송-수신소는 융통성 있는 수많은 영 개인성들 이외에 유란시아에 대개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50억 명이 넘는 존재들—물질 그리고 모론시아—을 얹히는 번쩍거리는 물질들로 건축된 하나의 거대한 원형극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에서 우주의 복지와 상태를 배우기 위해 방송국에서 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루셈 전체에게 매우 좋아하는 기본전환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지체되지 않는 유일한 행동이다.

이 방송-수취 원형극장에 구원자별 메시지들이 계속적으로 도착한다. 가까운 곳에서, 지고자별자리 아버지의 에덴시아 연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받아들여진다. 유버사의 규칙적인 방송과 특별 방송이 구원자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되며, 파라다이스 메시지들이 접수될 때, 모든 인원들이 유리 바다에 집합하고, 유버사 친구들은 들은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 방송의

Numerous mechanical developments are used in providing initial energy for escaping the planetary gravity and overcoming the air resistance. A seraphic transport departs every three seconds of Urantia time throughout the light period and, sometimes, far into the recession. The transporters take off at about twenty-five standard miles per second of Urantia time and do not attain standard velocity until they are over two thousand miles away from Jerusem.

46:2.9 (521.6) Transports arrive on the crystal field, the so-called sea of glass. Around this area are the receiving stations for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who traverse space by seraphic transport. Near the polar crystal receiving station for student visitors you may ascend the pearly observatory and view the immense relief map of the entire headquarters planet.

3. THE JERUSEM BROADCASTS

46:3.1 (522.1) The superuniverse and Paradise-Havona broadcasts are received on Jerusem in liaison with Salvington and by a technique involving the polar crystal, the sea of glass. In addition to provisions for the reception of these extra-Nebadon communications, there are three distinct groups of receiving stations. These separate but tricircular groups of stations are adjusted to the reception of broadcasts from the local worlds, from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from the capital of the local universe. All these broadcasts are automatically displayed so as to be discernible by all types of beings present in the central broadcast amphitheater; of all preoccupations for an ascendant mortal on Jerusem, none is more engaging and engrossing than that of listening in on the never-ending stream of universe space reports.

46:3.2 (522.2) This Jerusem broadcast-receiving station is encircled by an enormous amphitheater, constructed of scintillating materials largely unknown on Urantia and seating over five billion beings — material and morontia — besides accommodating innumerable spirit personalities. It is the favorite diversion for all Jerusem to spend their leisure at the broadcast station, there to learn of the welfare and state of the universe. And this is the only planetary activity which is not slowed down during the recession of light.

46:3.3 (522.3) At this broadcast-receiving amphitheater the Salvington messages are coming in continuously. Near by, the Edentia word of the Most High Constellation Fathers is received at least once a day. Periodically the regular and special broadcasts of Uversa are relayed through Salvington, and when Paradise messages are in reception, the entire population is assembled

기법에 반영성 현상을 첨가한다. 그리고 영원한 모험 여행을 향하여 그들이 안쪽으로 여행할 때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제공되는 앞서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계속적인 예상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루셈 출발 정거장은 구체의 반대 극지점에 위치해 있다. 개별적 세계들에 대한 모든 방송들은 미가엘 메시지들을 제외하고 체계 본부로부터 전달되는데, 그것들은 때로 천사장의 순환회로 위에서 그것들의 도착지로 직접 날아간다.

제 4 장. 거주지와 행정 지역

예루셈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주지로 배열된 반면, 체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과 56개 과도기-문화 세계들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관련사들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필연적 행정-관리적 기능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예루셈에서 그리고 네바돈에서 이 배열들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 있다:

1. 순환계 원형(圓形)—비(非)원주민 거주지역.
2. 정사각형—체계 집행-행정-관리적 지역.
3. 직사각형—하급 토착 생명의 집결지.
4. 삼각형—지역 행정-관리적 지역 또는 예루셈 행정-관리적 지역.

체계 활동들을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삼각형들로 이렇게 배열한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에 공통적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열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것들은 창조자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들이다.

이 주거 지역과 행정-관리적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설명은 하느님의 물질아들들, 예루셈의 영원한 시민들의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땅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창조체 그리고 영에 가까운 창조체들의 수많은 다른 매혹적인 계층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루셈은 체계 기능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스피롱가의 효율적인 봉사를 즐긴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적 거주자들 그리고 방문자들을 대신하여 영적인 사명활동에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유지와 장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론시아 조력자들의 그리고 비교적 높은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과도기 하인들이 지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집단이다. 그들은 중도 창조체들이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중도

around the sea of glass, and the Uversa friends add the reflectivity phenomena to the technique of the Paradise broadcast so that everything heard becomes visible. And it is in this manner that continual foretastes of advancing beauty and grandeur are afforded the mortal survivors as they journey inward on the eternal adventure.

46:3.4 (522.4) The Jerusem sending station is located at the opposite pole of the sphere. All broadcasts to the individual worlds are relayed from the system capitals except the Michael messages, which sometimes go direct to their destinations over the archangels' circuit.

4.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46:4.1 (522.5) Considerable portions of Jerusem are assigned as residential areas, while other portions of the system capital are given over to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functions involving the supervision of the affairs of 619 inhabited spheres, 56 transitional-culture worlds, and the system capital itself. On Jerusem and in Nebadon these arrangements are designed as follows:

- 46:4.2 (522.6) 1. *The circles* — the nonnative residential areas.
- 46:4.3 (522.7) 2. *The squares* — the system executive-administrative areas.
- 46:4.4 (522.8) 3. *The rectangles* — the rendezvous of the lower native life.
- 46:4.5 (522.9) 4. *The triangles* — the local or Jerusem administrative areas.

46:4.6 (522.10) This arrangement of the system activities into circles, squares, rectangles, and triangles is common to all the system capitals of Nebadon. In another universe an entirely different arrangement might prevail. These are matters determined by the diverse plans of the Creator Sons.

46:4.7 (523.1) Our narrative of these residential and administrative areas takes no account of the vast and beautiful estates of the Material Sons of God, the permanent citizens of Jerusem, neither do we mention numerous other fascinating orders of spirit and near-spirit creatures. For example: Jerusem enjoys the efficient services of the spironga of design for system function. These beings are devoted to spiritual ministry in behalf of the supermaterial residents and visitors. They are a wonderful group of intelligent and beautiful beings who are the transition servants of the higher morontia creatures and of the morontia helpers who labor for the upkeep and embellishment of all morontia creations. They are on Jerusem what the midway creatures are on

조력자들이 물질과 영 사이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셈에 있다.

체계 수도들은 그것들이 우주 실존의 세 단계들 즉: 물질적, 모론시아적, 영적 단계들 모두를 거의 완벽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세계들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너희가 물질적, 모론시아적, 또는 영적 개인성이든지, 너희는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중도 창조체들과 물질아들과 같은 병합된 존재도 그러하다.

예루셈은 물질적 유형과 모론시아 유형의 거대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반면, 순전히 영적인 구역들의 장식은 비교적 덜 멋지고 덜 충만하다. 예루셈의 경이로운 물리적 장치들에 대하여 모론시아에 해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면! 이 본부 세계의 영적인 성취들에 대한 장엄한 위엄과 정교한 완숙함을 계속 설명할 수 있었다라면! 설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극치에 대한 너희의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개념도 이 장관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예루셈은 파라다이스 아름다움의 숭고한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

제 5 장. 예루셈 순환계

우주 생명의 주요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 예정지들은 예루셈 순환계들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들에서 발견되는 그 순환계 집단들은 아래와 같다: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2. 천사들과 비교적 높은 영들의 순환계들.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을 포함하는,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

4.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순환계들.

5. 중도 창조체들을 포함하여, 배정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6. 우대거류민들의 순환계들.

7. 최종의 무리단의 순환계들.

이 거주지 집단화들 각각은 일곱 개의 동심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고양된 순환계들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계통을 따라 건설되었지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질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멀리까지 이르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들은 일곱 동심원 순환계들로 이루어진 각 집단을 전반적으로 포위하는 광범위한 행렬들을 형성하기까지 올라간다.

1. 하느님의 아들들의 순환계들. 하느님의 아

Urantia, midway helps functio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46:4.8 (523.2) The system capitals are unique in that they are the only worlds which exhibit well-nigh perfectly all three phases of universe existence: the material,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Whether you are a material, morontia, or spirit personality, you will feel at home on Jerusalem; so also do the combined beings, such as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Material Sons.

46:4.9 (523.3) Jerusalem has great buildings of both material and morontia types, while the embellishment of the purely spiritual zones is no less exquisite and replete. If I only had words to tell you of the morontia counterparts of the marvelous physical equipment of Jerusalem! If I could only go on to portray the sublime grandeur and exquisite perfection of the spiritual appointments of this headquarters world! Your most imaginative concept of perfection of beauty and repleteness of appointment would hardly approach these grandeurs. And Jerusalem is but the first step on the way to the supernal perfection of Paradise beauty.

5. THE JERUSEM CIRCLES

46:5.1 (523.4) The residential reservations assigned to the major groups of universe life are designated the Jerusalem circles. Those circle groups which find mention in these narratives are the following:

46:5.2 (523.5) 1. The circles of the Sons of God.

46:5.3 (523.6) 2. The circles of the angels and higher spirits.

46:5.4 (523.7) 3. The circles of the Universe Aids, including the creature-trinitized sons not assigned to the Trinity Teacher Sons.

46:5.5 (523.8) 4. The circle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46:5.6 (523.9) 5. The circles of the assigned ascending mortals, including the midway creatures.

46:5.7 (523.10) 6. The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46:5.8 (523.11) 7. The circle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46:5.9 (523.12) Each of these residential groupings consists of seven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circles. They are all constructed along the same lines but are of different sizes and are fashioned of differing materials. They are all surrounded by far-reaching enclosures, which mount up to form extensive promenades entirely encompassing every group of seven concentric circles.

46:5.10 (524.1) 1. *Circles of the Sons of God.* Though

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 사회적 행성, 과도기-문화 세계들 중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그들은 또한 예루셈에서 이 광대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과도기-문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신성한 아들관계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자유롭게 섞일 수 있다. 거기에서 너희는 이 아들들을 직접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이 특별 세계와 그것의 위성들에게 주로 국한되어 있다. 아무튼, 예루셈 순환계에서는, 아들관계의 다양한 이 집단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모론티아 시야가 거대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길을 걸을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계층들의 흥미를 잡아내는 활동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아들들의 이 일곱 순환계들은 바깥의 더 큰 순환계들 각각이 안쪽의 보다 작은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동심원을 이루고 있고 연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공공의 산책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들은 변칙적인 광도를 가진 수정 보석들로 건축되어 있으며 그것들 각각의 거주지 순환계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어 있다. 이 벽들 각각을 통과하는 많은 문들—50개부터 150,000개까지—은 하나의 진주 같은 수정으로 되어 있다.

아들들의 영토의 첫 번째 순환계는 치안법관 아들들과 그들의 개인 참모진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이 사법적 아들들의 중여와 판결 봉사에 해당되는 계획들 그리고 직접적 활동들 모두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체계의 아보날들이 우주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 중심지를 통해서이다.

두 번째 순환계는 삼위일체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성한 이 영토에서는 데이날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새롭게 도착된 1차 교사 아들들에 대한 훈련을 더 진행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 속에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정 조화-협동 부서에 의해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데이날 순환계의 한 지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지역체계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거의 개인적인 대리자가 될 정도에 이르며;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기원 존재들이다. 이 두 번째 순환계는 예루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범하게 흥미로운 영토이다.

세 번째 순환계는 멜기세덱들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체계 우두머리들이 거주하며 이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들을 감독한다. 맨션세계들 중에서 첫 번째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예루셈 생애 전체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들은 양아버지들이며 항상-제시되어 있는 충고자들이다.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항상-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예루셈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네 번째 순환계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은 방문자 그리고 관찰자 아들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보론다덱들의 고향이다. 지고자 별자리 아버지들

the Sons of God possess a social planet of their own, one of the transitional-culture worlds, they also occupy these extensive domains on Jerusem. On their transitional-culture world the ascending mortals freely mingle with all orders of divine sonship. There you will personally know and love these Sons, but their social life is largely confined to this special world and its satellites. In the Jerusem circles, however, these various groups of sonship may be observed at work. And since morontia vision is of enormous range, you can walk about on the Sons' promenades and overlook the intriguing activities of their numerous orders.

46:5.11 (524.2) These seven circles of the Sons are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so that each of the outer and larger circles overlooks the inner and smaller ones, each being surrounded by a public promenade wall. These walls are constructed of crystal gems of gleaming brightness and are so elevated as to overlook all of their respective residential circles. The many gates — from fifty to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 which penetrate each of these walls consist of single pearly crystals.

46:5.12 (524.3) The first circle of the domain of the Sons is occupied by the Magisterial Sons and their personal staffs. Here center all of the plans and immediate activities of the bestowal and adjudicational services of these juridical Sons. It is also through this center that the Avonals of the system maintain contact with the universe.

46:5.13 (524.4) The second circle is occupi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In this sacred domain the Daynals and their associates carry forward the training of the newly arrived primary Teacher Sons. And in all of this work they are ably assisted by a division of certain co-ordinates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e creature-trinitized sons occupy a sector of the Daynal circle. The Trinity Teacher Son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al Father in a local system; they are at least Trinity-origin beings. This second circle is a domain of extraordinary interest to all the peoples of Jerusem.

46:5.14 (524.5) The third circle is devoted to the Melchizedeks. Here the system chiefs reside and supervise the almost endless activities of these versatile Sons. From the first of the mansion worlds on through all the Jerusem career of ascending mortals, the Melchizedeks are foster fathers and ever-present advisers. It would not be amiss to say that they are the dominant influence on Jerusem aside from the ever-present activitie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46:5.15 (524.6) The fourth circle is the home of the Vorondadeks and all other orders of the visiting and observer Sons who are not otherwise

은 지역 체계에 검열을 위한 방문을 할 때 이 순환계에 거주지를 정한다. 지혜의 완전자들, 신성한 조인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은 모두 체계에서 일할 때 이 순환계에 거주한다.

다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주권자들과 행성영주들의 아들관계 계층인 라노난덱들의 거주지이다. 그 세 집단들은 이 영토에서 설 때 하나로 섞인다. 체계 예비자들이 이 순환계에서 모이는 반면, 체계 주권자는 관리-행정 고지에 있는 구조물들의 통치하는 집단의 중심지에 위치한 하나의 성전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순환계는 체계 생명운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아들들의 계층들 전체가 여기에서 모이며,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그들의 세계 임무를 향해 나아간다.

일곱 번째 순환계는 상승하는 아들들의 집결지인데, 그들은 그들의 세라핌천사 동료들과 함께 체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예정된 필사자들이다. 예루셈 시민권보다 높은 신분에 있고 최종자의 신분보다는 낮은, 그 전에 필사자였던 모든 존재들은 이 순환계에 그 본부를 갖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아들들의 이들 원형의 특별보호구역은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1,900년 전까지 거기에는 그 중앙에 하나의 거대한 열린 공간이 존재했다. 이 중앙 지역에는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완성되었다. 495년 전, 이 성전이 바쳐졌을 때, 미가엘이 직접 나타났었고, 예루셈 전역은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현재, 가장 최근에 옮겨심은 구원자별 활동들 대부분을 포용하여, 미가엘의 증여에 의해 발생된 체계에 대한 수정된 운용 관리에 내포되는 모든 활동들의 중심지이다. 기념관의 요원들은 백만 명 이상의 개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천사들의 순환계들. 아들들의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순환계들은 일곱 동심원들과 연속적으로 상승된 순환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은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천사들의 첫 번째 원형지역은 본부 세계에 머물게 되는 무한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단독 메신저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원형지역은 때때로 예루셈에서 기능하기도 하는, 메신저 무리, 기술 조인자들, 동행자들, 검열자들, 그리고 기록자들에게 바쳐져 있다. 세 번째 원형지역은 비교적 높은 계층들과 집단들의 사명활동 영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네 번째 순환계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들

provided for. The Most High Constellation Fathers take up their abode in this circle when on visits of inspection to the local system. Perfectors of Wisdom, Divine Counselors, and Universal Censors all reside in this circle when on duty in the system.

46:5.16 (524.7) The fifth circle is the abode of the Lanonandeks, the sonship order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The three groups mingle as one when at home in this domain. The system reserves are held in this circle, while the System Sovereign has a temple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governing group of structures on administration hill.

46:5.17 (524.8) The sixth circle is the tarrying place of the system Life Carriers. All orders of these Sons are here assembled, and from here they go forth on their world assignments.

46:5.18 (524.9) The seventh circle is the rendezvous of the ascending sons, those assigned mortals who may be temporarily functioning on the system headquarters, together with their seraphic consorts. All ex-mortals above the status of Jerusem citizens and below that of finaliters are reckoned as belonging to the group having its headquarters in this circle.

46:5.19 (525.1) These circular reservations of the Sons occupy an enormous area, and until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re existed a great open space at its center. This central region is now occupied by the Michael memorial, completed some five hundred years ago. Four hundred and ninety-five years ago, when this temple was dedicated, Michael was present in person, and all Jerusem heard the touching story of the Master Son's bestowal on Urantia, the least of Satania. The Michael memorial is now the center of all activities embraced in the modified management of the system occasioned by Michael's bestowal, including most of the more recently transplanted Salvington activities. The memorial staff consists of over one million personalities.

46:5.20 (525.2) 2. *The circles of the angels.* Like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ons, these circles of the angels consist of seven concentric and successively elevated circles, each overlooking the inner areas.

46:5.21 (525.3) The first circle of the angels is occupied by the Higher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who may be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 — Solitary Messengers and their associates. The second circle is dedicated to the messenger hosts, Technical Advisers, companions, inspectors, and recorders as they may chance to function on Jerusem from time to time. The third circle is held by the ministering spirits of the higher orders and groupings.

46:5.22 (525.4) The fourth circle is held by the

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타니아와 마찬가지로 지역 체계에서 봉사하는 세라핌천사들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이다. 다섯 번째 순환계는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들이 차지하는 반면, 여섯 번째는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의 고향이다. 일곱 번째 순환계는 세라핌천사들 중 계시되지 않은 특정한 계층들이 머무는 구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들 중 기록자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머물지 않는데, 예루셈 기록 성전에 거주한다. 모든 기록들은 이 삼중적 보관소에 세 복사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기록들이 물질적 형태, 모론시아 형태, 그리고 영 형태로 항상 보관된다.

이 일곱 순환계들은 둘레가 5,000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예루셈의 파노라마 전시(展示)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사타니아의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진보하는 지위를 표현하는 일에 매달려 있으며 각각의 행성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초기 방문에서 확장된 여가 시간을 갖도록 허락되었을 때 천사들의 순환계들을 내려다보는 이 광대한 산책로가 너희의 주의를 끄는 예루셈의 첫 번째 광경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 전시는 예루셈의 원주민 생명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예루셈에 머물고 있는 여러 사타니아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행정 상황과 세계 진보에 대한 묘사는, 일부는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방법들에 의해, 그러나 대부분은 유란시아에 알려진 기법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전시는 이 광대한 성벽의 외부 끝자락을 차지한다. 그 산책로의 나머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열려진 상태인데, 높게 그리고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다.

3. 우주 도움자들의 순환계들은 거대한 중앙 공간에 위치해 있는 저녁별들의 본부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이 능력있는 특급천사들의 연관-동료 수장(首長)인 갈란티아의 체계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상승자 저녁별들 전체 중에서 첫 번째로 임명된다. 이것은 그것이 더욱 최근에 건축된 것들 중의 하나일지라도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지역들 전체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중심지는 직경이 50마일이다. 갈란티아 본부는 전적으로 투명한 하나의 단일체 구조(鑄造) 수정이다. 이 물질-모론시아 수정들은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적 존재 둘 모두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는다. 창조된 저녁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예루셈 전역에서 행사하는데, 그러한 특별 개인성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세계가 영적으로 향기로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 대부분이 구원자별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4.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순환계들.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힘 있는 거대한 성전 주변에 동심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우두머리와 관계적-연

administrator seraphim, and the seraphim serving in a local system like Satania are an “innumerable host of angels.” The fifth circle is occupied by the planetary seraphim, while the sixth is the home of the transition ministers. The seventh circle is the tarrying sphere of certain unrevealed orders of seraphim. The recorders of all these groups of angels do not sojourn with their fellows, being domiciled in the Jerusalem temple of records. All records are preserved in triplicate in this threefold hall of archives. On a system headquarters, records are always preserved in material, in morontia, and in spirit form.

46:5.23 (525.5) These seven circles are surrounded by the exhibit panorama of Jerusalem, five thousand standard miles in circumference, which is devoted to the presentation of the advancing status of the peopled worlds of Satania and is constantly revised so as to truly represent up-to-date conditions on the individual planets. I doubt not that this vast promenade overlooking the circles of the angels will be the first sight of Jerusalem to claim your attention when you are permitted extended leisure on your earlier visits.

46:5.24 (525.6) These exhibits are in charge of the native life of Jerusalem, but they are assisted by the ascenders from the various Satania worlds who are tarrying on Jerusalem en route to Edentia. The portrayal of planetary conditions and world progress is effected by many methods, some known to you, but mostly by techniques unknown on Urantia. These exhibits occupy the outer edge of this vast wall. The remainder of the promenade is almost entirely open, being highly and magnificently embellished.

46:5.25 (525.7) 3. *The circles of the Universe Aids* have the headquarters of the Evening Stars situated in the enormous central space. Here is located the system headquarters of Galantia, the associate head of this powerful group of superangels, being the first commissioned of all the ascendant Evening Stars. This is one of the most magnificent of all the administrative sectors of Jerusalem, even though it is among the more recent constructions. This center is fifty miles in diameter. The Galantia headquarters is a monolithic cast crystal, wholly transparent. These material-morontia crystals are greatly appreciated by both morontia and material beings. The created Evening Stars exert their influence all over Jerusalem, being possessed of such extrapersonality attributes. The entire world has been rendered spiritually fragrant since so many of their activities were transferred here from Salvington.

46:5.26 (526.1) 4. *The circle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 various order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re concentrically arranged around the vast temple of power, wherein presides

합하여 체계의 힘 우두머리를 통솔한다. 힘이 있는 이 성전은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중도 창조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예루셈에 있는 두 지역들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非)물질화 된 구역, 실존하는 모론시아 계층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상태 속으로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물질적 존재들을 변환시키는 일련의 실험실이다.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순환계들의 중앙 지역은 체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개 행성 기념관들의 한 집단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겪는다. 때때로 그들의 행성 기념관들에게 변경과 추가가 있음을 동의하는 것은 각 세계로부터 온 필사자들의 특권이다. 많은 변화들이 지금도 유란시아 구조물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619개 성전들의 중앙은 에덴시아 그리고 상승하는 문화를 가진 그것의 여러 세계들의 한 실용적인 모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직경이 40마일이며, 모든 면에서 원형들과 닮이 없는 에덴시아 체계의 실제적 복제물이다.

상승자들은 그들의 예루셈 봉사를 즐기며 다른 집단들의 기법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이 다양한 순환계들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예루셈 전체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그러한 세계의 활동들은 세 가지 뚜렷한 다양성들 즉: 일, 진보, 수행에 속한다. 다르게 표현하며, 그것들은: 봉사, 연구, 그리고 이완-휴식이다. 혼합 활동들은 사회적 교제와 집단 위안 그리고 신성한 경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집단의 개인성들, 자기 자신의 동료들과는 매우 다른 계층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6. 우대거류민단의 순환계들. 우대거류민단의 일곱 순환계들은 거대한 세 구조물들; 예루셈의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화랑, 그리고 복귀(復歸) 지도자들의 거대한 회합 장소, 휴식과 유흥에 바쳐진 모론시아 활동 극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천상의 거장이 스포르나기아를 지도하며, 공공 회합이 이루어지는 각 장소에 풍부하게 널려있는, 창조적 장식물들과 역사적 기념의 무리들을 제공한다. 이 거장들의 작업장들은 이 훌륭한 세계의 비길 데 없는 구조물들 전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다른 우대거류민단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본부를 유지한다. 이 건물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수정 보석으로 지어져 있다. 모든 고안건축의 세계들에는 수정과 소위 귀중한 금속들이 풍부하다.

the power chief of the system in association with the chief of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This temple of power is one of two sectors on Jerusalem where ascending mortals and midway creatures are not permitted. The other one is the dematerializing sector in the area of the Material Sons, a series of laboratories wherein the transport seraphim transform material beings into a state quite like that of the morontia order of existence.

46:5.27 (526.2) 5. *The circles of the ascending mortals.* The central area of the circles of the ascending mortals is occupied by a group of 619 planetary memorials representative of the inhabited worlds of the system, and these structures periodically undergo extensive changes. It is the privilege of the mortals from each world to agree, from time to time, upon certain of the alterations or additions to their planetary memorials. Many changes are even now being made in the Urantia structures. The center of these 619 temples is occupied by a working model of Edentia and its many worlds of ascendant culture. This model is forty miles in diameter and is an actual reproduction of the Edentia system, true to the original in every detail.

46:5.28 (526.3) Ascenders enjoy their Jerusalem services and take pleasure in observing the techniques of other groups. Everything done in these various circles is open to the full observation of all Jerusalem.

46:5.29 (526.4) The activities of such a world are of three distinct varieties: work, progress, and play. Stated otherwise, they are: service, study, and relaxation. The composite activities consist of social intercourse, group entertainment, and divine worship. There is great educational value in mingling with diverse groups of personalities, orders very different from one's own fellows.

46:5.30 (526.5) 6. *The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The seven circles of the courtesy colonies are graced by three enormous structures: the vast astronomic observatory of Jerusalem, the gigantic art gallery of Satania, and the immense assembly hall of the reversion directors, the theater of morontia activities devoted to rest and recreation.

46:5.31 (526.6) The celestial artisans direct the spornagia and provide the host of creative decorations and monumental memorials which abound in every place of public assembly. The studios of these artisans are among the largest and most beautiful of all the matchless structures of this wonderful world. The other courtesy colonies maintain extensive and beautiful headquarters. Many of these buildings are constructed wholly of crystal gems. All the architectural worlds abound in crystals and the so-called precious metals.

7. 최종자의 원형지역들은 중앙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동일한 이 성전이 네바돈 전역의 각 체계 본부 세계에서 발견된다. 예루셈에 있는 이 건물은 미가엘의 휘장에 의해 봉해져 있으며,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영의 일곱 번째 단계—영원한 임무—까지는 봉헌되지 않았음.” 가브리엘이 신비로운 이 성전을 봉인하였으며, 미가엘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빛나는 새벽별에 의해 부착된 주권자의 봉인을 뜯을 수 없고 뜯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꿰뚫어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이 고요한 성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예루셈 순환계들: 이 거주지 순환계들 이외에, 예루셈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주지들이 있다.

제 6 장. 집행-행정 정사각형

이 체계의 집행-행정-관리적 부서들은 거대한 분과별 광장들에 위치해 있는데, 1,000개에 이른다. 각각의 행정-관리적 단위는 각각 10개 하부 집단을 갖는 100개 하부 부서들로 나뉜다. 이 1,000개 광장들은 10개의 큰 부서들로 군(群)을 이루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행정-관리적 분과들을 구성한다.

1. 물리적 유지 그리고 물질적 개선, 물리적 힘과 에너지의 영토.
2. 중재, 윤리, 그리고 행정-관리적 판결.
3. 행성 그리고 지역 관련사들.
4. 별자리 그리고 우주 관련사들.
5. 교육 그리고 다른 멜기세덱들의 활동들.
6. 행성 그리고 체계 물리적 진보, 사타니아 활동들의 과학적 권역들.
7. 모론시아 관련사들.
8. 순전한 영 활동들 그리고 윤리.
9. 상승자 사명활동.
- 10 대우주 철학.

이 구조들은 명백하다; 그래서 모든 체계 활동들은 학생 방문자들에게도 보일 수 있다.

제 7 장.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에르세이 1,000개 직사각형으로 보브 체서이

46:5.32 (527.1) 7. *The circles of the finalizers* have a unique structure at the center. And this same vacant temple is found on every system headquarters world throughout Nebadon. This edifice on Jerusem is sealed with the insignia of Michael, and it bears this inscription: “Undedicated to the seventh stage of spirit — to the eternal assignment.” Gabriel placed the seal on this temple of mystery, and none but Michael can or may break the seal of sovereignty affixed b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ome day you shall look upon this silent temple, even though you may not penetrate its mystery.

46:5.33 (527.2) *Other Jerusem circles:* In addition to these residential circles there are on Jerusem numerous additional designated abodes.

6. THE EXECUTIVE-ADMINISTRATIVE SQUARES

46:6.1 (527.3) The executive-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system are located in the immense departmental squares, one thousand in number. Each administrative unit is divided into one hundred subdivisions of ten subgroups each. These one thousand squares are clustered in ten grand divisions, thus constituting the following t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 46:6.2 (527.4) 1. Physical maintenance and material improvement, the domains of physical power and energy.
- 46:6.3 (527.5) 2. Arbitration, ethics, an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 46:6.4 (527.6) 3. Planetary and local affairs.
- 46:6.5 (527.7) 4. Constellation and universe affairs.
- 46:6.6 (527.8) 5. Education and other Melchizedek activities.
- 46:6.7 (527.9) 6. Planetary and system physical progress, the scientific domains of Satania activities.
- 46:6.8 (527.10) 7. Morontia affairs.
- 46:6.9 (527.11) 8. Pure spirit activities and ethics.
- 46:6.10 (527.12) 9. Ascendant ministry.
- 46:6.11 (527.13) 10. Grand universe philosophy.

46:6.12 (527.14) These structures are transparent; hence all system activities can be viewed even by student visitors.

7. THE RECTANGLES — THE SPORNAGIA

46:7.1 (527.15) The one thousand rectangles of

예루셈의 1,000개 석식적 영토는 단지 영토의 비교적 낮은 원주민 생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중앙에는 스포르나기아의 광대한 순환 본부가 있다.

예루셈에서는 너희가 훌륭한 스포르나기아의 농업 업적들에 의해 놀라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 땅은 심미적 효과와 장식 효과들을 위해 주로 경작된다. 스포르나기아는 본부 세계들의 경치 원예가들이며, 그들은 예루셈의 열린 공간들을 그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기원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다.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 동물들과 수많은 기계적 장치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역의 힘 대리자들을 활용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이 특별한 세계들에게 제공된 비교적 저급한 동물 창조체들로 이루어진 그들의 비교적 낮은 형제들의 수많은 계층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노련하다. 동물 생명의 이 계층은 진화 세계들로부터 온 상승하는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 현재 광범위하게 지도받고 있다.

스포츠르나기아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존되는 혼이 없지만, 그들은 긴 삶을 사는데, 때로는 40,000년부터 50,000년의 표준 년의 기간에 이른다. 그들의 숫자는 큰 무리를 이루며, 그들은 물질적 봉사가 필요한 우주 개인성의 모든 계층에게 물리적 사명활동을 제공한다.

스포츠르나기아가 생존되는 혼을 갖지도 않고 혼이 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인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별성을 발전시킨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창조체들이 활용도와 나이에서 열등하게 될 때, 그들의 창조자들은, 생명운반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나이 많은 스포르나기아가 그들의 거주를 그 안에 다시-세우는, 새로운 몸체를 조립한다.

스포츠르나기아는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환생에서의 이러한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해도 체험을 겪는 유일한 창조체이다. 그들은 보조 마음-영들 중 처음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그들은 경배 그리고 지혜의 영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섯-보조 마음이 전체성에 동등하게 되며, 즉 여섯 번째 실체 차원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요소가 하나의 체험적 정체성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비교할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 유용하고도 비범한 창조체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닌데,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그들의 현재 형태와 지위로 구체적으로 투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양성(兩性)이며 중대되는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될 때 산출한다.

이들 아름답고도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창조체의 본성에 관한, 무언가를 유란시아 마음들에게 최선으로 제시한다면 아마도, 그들이 충실한 말과

The one thousand rectangles of Jerusalem are occupied by the lower native life of the headquarters planet, and at their center is situated the vast circular headquarters of the spornagia.

46:7.2 (527.16) On Jerusalem you will be amazed by the agricultural achievements of the wonderful spornagia. There the land is cultivated largely for aesthetic and ornamental effects. The spornagia are the landscape gardeners of the headquarters worlds, and they are both original and artistic in their treatment of the open spaces of Jerusalem. They utilize both animals and numerous mechanical contrivances in the culture of the soil. They are intelligently expert in the employment of the power agencies of their realms as well as in the utilization of numerous orders of their lesser brethren of the lower animal creations, many of which are provided them on these special worlds. This order of animal life is now largely directed by the ascending midway creatures from the evolutionary spheres.

46:7.3 (528.1) Spornagia are not Adjuster indwelt. They do not possess survival souls, but they do enjoy long lives, sometimes to the extent of forty to fifty thousand standard years. Their number is legion, and they afford physical ministry to all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requiring material service.

46:7.4 (528.2) Although spornagia neither possess nor evolve survival souls, though they do not have personality, nevertheless, they do evolve an individuality which can experience reincarnation. When,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physical bodies of these unique creatures deteriorate from usage and age, their creators, in collaboration with the Life Carriers, fabricate new bodies in which the old spornagia re-establish their residences.

46:7.5 (528.3) Spornagia are the only creatures in all the universe of Nebadon who experience this or any other sort of reincarnation. They are only reactive to the first five of the adjutant mind-spirits; they are not responsive to the spirits of worship and wisdom. But the five-adjutant mind equivalates to a totality or sixth reality level, and it is this factor which persists as an experiential identity.

46:7.6 (528.4) I am quite without comparisons in undertaking to describe these useful and unusual creatures as there are no animals on the evolutionary worlds comparable to them. They are not evolutionary beings, having been projected by the Life Carriers in their present form and status. They are bisexual and procreate as they are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a growing population.

46:7.7 (528.5) Perhaps I can best suggest to Urantia minds something of the nature of these beautiful and serviceable creatures by saying that they

애정 깊은 개의 병합된 특색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유형의 원숭이를 능가하는 지능을 현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우 아름답다. 이들 고안건축 세계에 머무는 물질적 그리고 반(半)물질적 체류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그들은 가장 깊이 감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이—물질적 존재들 외에도—모론시아 창조체들, 비교적 낮은 천사 계층들, 중도 창조체들, 그리고 비교적 낮은 계층들의 영 개인성들을 인지하게 만드는 시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무한자에 대한 경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자에 대한 의미도 또한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들 영역에서의 영적 헌신에 참여한다.

장래의 우주 시대에, 이 신실한 스포르나기가 그들의 동물적 실존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진보하는 지적 성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는 훌륭한 진화적 운명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다.

제 8 장. 예루셈 삼각형

예루셈의 순전히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관련사들이 100개 삼각형들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관리-행정의 주소를 정하는 10개의 신기한 구조물들 주변에 군(群)을 이루고 있다. 그 삼각형들은 체계 본부 역사의 개괄적 묘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현재 이 순환적 이야기 속에는 2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삭제된 부분이 있다. 이 구역은 별자리 가족으로 사타니아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 재생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미가엘의 명령에 의해 이미 만들어졌지만, 루시퍼 반란의 관련사에 대한 판결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이 아직 완결하지 않았다. 사타니아가 최고 반역자들, 곧 빛으로부터 어두움 속으로 떨어진 높은 피조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사타니아는 놀라시아택의 충분한 동료관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타니아가 별자리 울타리 안에 돌아올 수 있을 때, 고립된 세계들을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의 체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임에 대한 고려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역들의 영적 교체 안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뒤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란시아가 체계 순환계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전체 체계가 다른 모든 체계들로부터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놀라시아택 억류 아래에 놓여 있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당황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사타니아 체계를 놀라시아택 별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유란시아 그리고 고립된 다른 구체들은 사타니아 순환계들로 회복될 것이며, 그러한 세계들은 행성 사이 통신과 체계 사이 교체의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embrace the combined traits of a faithful horse and an affectionate dog and manifest an intelligence exceeding that of the highest type of chimpanzee. And they are very beautiful, as judged by the physical standards of Urantia. They are most appreciative of the attentions shown them by the material and semimaterial sojourners on these architectural worlds. They have a vision which permits them to recognize — in addition to material beings — the morontia creations, the lower angelic orders, midway creatures, and some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 personalities. They do not comprehend worship of the Infinite, nor do they grasp the import of the Eternal, but they do, through affection for their masters, join in the outward spiritual devotions of their realms.

46:7.8 (528.6)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in a future universe age, these faithful spornagia will escape from their animal level of existence and attain a worthy evolutionary destiny of progressive intellectual growth and even spiritual achievement.

8. THE JERUSEM TRIANGLES

46:8.1 (528.7) The purely local and routine affairs of Jerusalem are directed from the one hundred triangles. These units are clustered around the ten marvelous structures domiciling the local administration of Jerusalem. The triangles are surrounded by the panoramic depiction of the system headquarters history. At present there is an erasure of over two standard miles in this circular story. This sector will be restored upon the readmission of Satania into the constellation family. Every provision for this event has been made by the decrees of Michael, but the tribunal of the Ancients of Days has not yet finished the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Satania may not come back into the full fellowship of Norlatiadek so long as it harbors archrebels, high created beings who have fallen from light into darkness.

46:8.2 (529.1) When Satania can return to the constellation fold, then will come up for consideration the readmission of the isolated worlds into the system family of inhabited planets, accompanied by their restoration to the spiritual communion of the realms. But even if Urantia were restored to the system circuits, you would still be embarrassed by the fact that your whole system rests under a Norlatiadek quarantine partially segregating it from all other systems.

46:8.3 (529.2) But ere long, the adjudication of Lucifer and his associates will restore the Satania system to the Norlatiadek constellation, and subsequently, Urantia and the other isolated spheres will be restored to the Satania circuits, and again will such worlds enjoy the privileges of interplanetary

반역과 반란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최극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지만, 고의적으로 조장된 악에 대한 법은 우주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영원한 소멸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communication and intersystem communion.

^{46:8.4 (529.3)} There will come an end for rebels and rebellion. The Supreme Rulers are merciful and patient, but the law of deliberately nourished evil is universally and unerringly executed. “The wages of sin is death” — eternal obliteration.

^{46:8.5 (529.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47 편 일곱 맨션세계

⇨ 046

유란시아 책

048 ⇨

부 II. 지역우주

제 47 편 일곱 맨션세계

섹션

소개

- 제 1 장. 최종자 세계
- 제 2 장. 보호관찰 보육원
- 제 3 장. 첫 번째 맨션세계
- 제 4 장. 두 번째 맨션세계
- 제 5 장. 세 번째 맨션세계
- 제 6 장. 네 번째 맨션세계
- 제 7 장. 다섯 번째 맨션세계
- 제 8 장. 여섯 번째 맨션세계
- 제 9 장. 일곱 번째 맨션세계
- 제 10 장. 예루셈 시민권

PAPER 47

THE SEVEN MANSION WORLD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Finaliters' World
- 2. The Probationary Nursery
- 3. The First Mansion World
- 4. The Second Mansion World
- 5. The Third Mansion World
- 6. The Fourth Mansion World
- 7. The Fifth Mansion World
- 8. The Sixth Mansion World
- 9. The Seventh Mansion World
- 10. Jerusem Citizenship

소개

창조자 아들은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우주에 있는 많은 거(居)할 곳”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셈을 돌고 있는 56개 세계들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과도기 수양에 헌신되어 있지만, 1번 세계의 일곱 위성들은 더욱 특별하게 맨션세계들로서 알려져 있다.

과도기 세계 1번 자체는 상승자 활동들에 매우 배타적으로 헌신되어 있는데, 사타니아에 배정된 최종자 무리단의 본부이다. 이 세계는 현재 100,000개 이상의 최종자 중대들을 위한 본부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 집단들 각각에는 1,000명의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있다.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될 때, 그리고 맨션세계들이 필사자-훈련 정류장들로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씩 멈추게 되면, 그것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더욱 높게 완전하게 된 이 체계들 안에 누적된 점증하는 최종자 주민에 의해 차지된다.

INTRODUCTION

47:0.1 (530.1) THE Creator Son, when on Urantia, spoke of the “many mansions in the Father’s universe.” In a certain sense, all fifty-six of the encircling worlds of Jerusem are devoted to the transitional culture of ascending mortals, but the seven satellites of world number one are more specifically known as the mansion worlds.

47:0.2 (530.2) Transition world number one itself is quite exclusively devoted to ascendant activities, being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 corps assigned to Satania. This world now serves as the headquarters for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companies of finaliters, and there are one thousand glorified beings in each of these groups.

47:0.3 (530.3) When a system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as the mansion worlds one by one cease to serve as mortal-training stations, they are taken over by the increasing finaliter population which accumulates in these older and more highly perfected systems.

일곱 맨션세계들은 모론시아 감독자들과 멜기세덱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각각의 세계에는 예루셈 통치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한 명의 대리 장관들이 있다. 유버사 화해자들이 맨션세계들 각각에 본부를 유지하는 반면, 인접된 곳은 기술 충고자들의 지역 집합장소이다. 복귀 지도자들과 천상의 거장은 이 세계들 각각에 집단 본부를 유지한다. 스피롱가는 2번 맨션세계부터 이어서 계속 기능하는 반면, 다른 과도기-수양 행성들과 본부 세계들과 같이, 일곱 개 전체는 표준 창조의 스포르나기아가 풍성하게 제공된다.

47.0.4 (530.4) The seven mansion worlds are in charge of the morontia supervisors and the Melchizedeks. There is an acting governor on each world who is directly responsible to the Jerusem rulers. The Uversa conciliators maintain headquarters on each of the mansion worlds, while adjoining is the local rendezvous of the Technical Advisers. The reversion directors and celestial artisans maintain group headquarters on each of these worlds. The spironga function from mansion world number two onward, while all seven, in common with the other transitional-culture planets and the headquarters world, are abundantly provided with spornagia of standard creation.

제 1 장. 최종자 세계

오직 최종자와 특정한 집단의 구원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만이 과도기 1번 세계에 거주하지만, 영 존재들과 과도기 필사자들 그리고 학생 방문자들 전체를 접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세계들에서 기능하는 스포르나기아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손한 영접자이다. 그들은 최종자에 관해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너희가 현재의 물리적 상태에서 천사들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을 간주하는 것이 틀림없다.

최종자 세계가 비록 멋진 물리적 아름다움과 색다른 모론시아 장식으로 된 구체라 할지라도, 활동들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한 영 거주지, 최종자의 성전은, 도움을 받지 않은 물질적 시력 또는 초기 모론시아 시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자들은 이 실체들 대부분을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문화적 구체에서 있는 맨션세계의 수업 집회의 경우에서처럼 그렇게 기능한다.

맨션세계 체험 전체를 통하여 너희는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너희의 영화롭게 된 형제의 현존을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들의 본부 거주지에서 그들이 기능하는 것처럼 그들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때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너희는 너희가 참된 영 시력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최종자를 자연스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모든 생존자들은 그들의 출생 행성들로부터 부모 위원회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현재의 유란시아 부모 위원회는 최근에 도착한 12쌍의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춘기 시대까지 셋 또는 그 이상의 자녀들을 기르는 필사 체험을 가졌다. 이 위원회에서의 봉사는 교대로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한다. 아버지의 체험에 있어서 이 위원회를 만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들의 고향에서 또는 최종자 세계에 있

1. THE FINALITERS' WORLD

47.1.1 (530.5) Although only finaliters and certain groups of salvaged children and their caretakers are resident on transitional world number one, provision is made for the entertainment of all classes of spirit beings, transition mortals, and student visitors. The spornagia, who function on all of these worlds, are hospitable hosts to all beings whom they can recognize. They have a vague feeling concerning the finaliters but cannot visualize them. They must regard them much as you do the angels in your present physical state.

47.1.2 (530.6) Though the finaliter world is a sphere of exquisite physical beauty and extraordinary morontia embellishment, the great spirit abode located at the center of activities, the temple of the finaliters, is not visible to the unaided material or early morontia vision. But the energy transformers are able to visualize many of these realities to ascending mortals, and from time to time they do thus function, as on the occasions of the class assemblies of the mansion world students on this cultural sphere.

47.1.3 (531.1) All through the mansion world experience you are in a way spiritually aware of the presence of your glorified brethren of Paradise attainment, but it is very refreshing, now and then, actually to perceive them as they function in their headquarters abodes. You will not spontaneously visualize finaliters until you acquire true spirit vision.

47.1.4 (531.2) On the first mansion world all survivors must pass the requirements of the parental commission from their native planets. The present Urantia commission consists of twelve parental couples, recently arrived, who have had mortal experience in rearing three or more children to the pubescent age. Service on this commission is rotational and is for only ten years as a rule. All who fail to satisfy these commissioners as to their parental experience must further qualify by service

는 보호관찰 보육원 안의 일부 분야에 봉사함으로써 더욱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체험에 상관없이,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진 맨션세계 부모들에게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론시아 보호관리자들과 그들의 지도와 훈련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부모들은 일년에 네 번까지 방문을 위한 그곳으로의 여행이 허락된다. 그리고 맨션세계 부모들이 최종자 세계를 향한 그들의 정기적 순례 여행의 사건들 중에서, 그들의 물질적 자식들을 포옹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모든 상승하는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장면들 중의 하나이다. 한쪽 또는 양쪽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먼저 맨션세계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아주 흔히 한 계절 동안 같은 시대에서 지낸다.

그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도 물질세계 혹은 뒤이어 지는 최종자 세계 또는 예루셈에서 자녀—자기 자신 또는 다른 이의 자녀—들을 기르는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똑같이 확실하게, 이 필수 체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유란시아 현대인들의 유감스럽고도 잘못된 인식이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필요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이러한 아버지가 체험이 필요하다.

제 2 장. 보호관찰 보육원

사타니아의 유아(乳兒)-접수 학교들은 최종자 세계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셈 과도기-양육 구체들 중 첫 번째이다. 이 유아-접수 학교들은, 우주 기록부에서 개별존재적 지위의 획득 이전(以前)에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죽은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의 자녀들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기관들이다. 그러한 자녀의 부모들 중 어느 한 쪽이나 둘 모두가 생존되는 일이 생기면, 운명 수호자는 자기와 연관된 케루빔을 아이의 잠재적 정체성의 보호관리자로 세우고, 케루빔에게 모론시아 세계의 보호관찰 보육원들에 있는 맨션세계 선생들의 손에 이 자라나지 못한 혼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긴다.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에서, 맨션세계 선생으로서, 최종자의 보호관찰 피보호자를 훈련하기 위해 그러한 확장된 교육 기관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바로 이 분리된 케루빔들이다. 이들 최종자가 보호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이들 어린아이들은 번식하는 잠재를 제외하고 죽었을 때의 그들의 바로 그 육체적 상태로 항상 개인성구현된다. 이 깨어남은 부모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음이 그렇게

in the homes of the Material Sons on Jerusem or in part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s world.

47.1.5 (531.3) But irrespective of parental experience, mansion world parents who have growing children in the probation nursery are given every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the morontia custodians of such children regarding their instruction and training. These parents are permitted to journey there for visits as often as four times a year. And it is one of the most touchingly beautiful scenes of all the ascending career to observe the mansion world parents embrace their material offspring on the occasions of their periodic pilgrimages to the finaliter world. While one or both parents may leave a mansion world ahead of the child, they are quite often contemporary for a season.

47.1.6 (531.4) No ascending mortal can escape the experience of rearing children — their own or others — either on the material worlds or subsequently on the finaliter world or on Jerusem. Fathers must pass through this essential experience just as certainly as mothers. It is an unfortunate and mistaken notion of modern peoples on Urantia that child culture is largely the task of mothers. Children need fathers as well as mothers, and fathers need this parental experience as much as do mothers.

2. THE PROBATIONARY NURSERY

47.2.1 (531.5) The infant-receiving schools of Satania are situated on the finaliter world, the first of the Jerusem transition-culture spheres. These infant-receiving schools are enterprises devoted to the nurture and training of the children of time, including those who have di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before the acquirement of individual status on the universe records. In the event of the survival of either or both of such a child's parents, the guardian of destiny deputizes her associated cherubim as the custodian of the child's potential identity, charging the cherubim with the responsibility of delivering this undeveloped soul into the hands of the Mansion World Teachers in the probationary nurseries of the morontia worlds.

47.2.2 (531.6) It is these same deserted cherubim who, as Mansion World Teach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s, maintain such extensive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training of the probationary wards of the finaliters. These wards of the finaliters, these infants of ascending mortals, are always personalized as of their exact physical status at the time of death except for reproductive potential. This awakening occurs at the exact time of the parental arrival on the first mansion world. And then are these children given

불시에 그들의 생애를 끝냈던 세계들에서 그들이 선택하였을 지도 모를 비로 그러한 하늘의 길을 선택하도록 모든 기회가 주어진다.

유아 세계에서, 보호관찰 창조체들은 그들이 조절자들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집단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조절자들이 시간 세계에서와 똑같이 이 물질적 자녀들에게 내주하기 위해 오기 때문이다. 한 살 또는 그 이하의 나이부터 조절자가 도착하는 나이인 약 다섯 살까지 범위의, 조절자-이전 나이의 자녀들은 5명씩의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다.

생각 조절자들을 가졌었지만 죽기 전에 파라다이스 생애에 관한 선택을 하지 않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모든 자녀들 역시 체계의 최종자 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조절자들 없이 도착한 어린 자, 그러나 나중에 도덕적 선택이 요구되는 나이에 이른 후 신비 감시자들을 받게 될 그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물질 아들들과 그들 연관-동료들의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최종자 세계에 있는 조절자-내주 자녀들과 청년들 역시, 다섯 명의 가정 안에서 키워지는데, 6살부터 14살까지 범위를 이룬다; 대체로 이 가정들은 6, 8, 10, 12, 그리고 14살인 자녀들로 구성된다. 16살이 지난 후 언제라도, 만일 최종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첫 번째 맨션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어떤 아이들은 이 나이에 이르기 전에 선택하고 상승 구체들로 가지만, 유란시아 표준으로 계산할 때, 16세 이전에는 매우 적은 숫자의 자녀들이 맨션세계들에서 발견된다.

수호 세라핌천사들이 진화하는 행성들에서 필사자들에 영적으로 사명활동하는 것과 바로 그렇게 똑같이 최종자 세계의 보호관찰 보육원에서 이들 젊은이들을 따라다니며, 한편 충성스러운 스포르나기아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사명활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시기가 이르기까지 과도기 세계에서 성장한다.

물질적 삶이 그 과정을 달려왔을 때, 만일 상승하는 삶을 위한 그 어떤 선택도 내리지 않았거나, 혹은 시간의 이들 자녀들이 하보나 모험에 반대하여 분명하게 결정하고 있다면, 죽음은 그들의 보호관찰하는 생애를 자동적으로 종결시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판결도 없다; 그러한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는 그 어떤 부활도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완전을 이루는 파라다이스 경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첫 번째 맨션세계로 옮겨질 준비가 즉시 갖추어지며, 그곳에서 그들 중 대부분은 하보나 상승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만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도착한다. 하보나를 통과하고 신(神)들에 참여한 이후에는, 필사자로부터 기원된 이들 구원된 혼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상승 시민권을 갖게 된다. 필사자 탄생의 세계에

every opportunity, as they are, to choose the heavenly way just as they would have made such a choice on the worlds where death so untimely terminated their careers.

47:2.3 (532.1) On the nursery world, probationary creatures are group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have Adjusters, for the Adjusters come to indwell these material children just as on the worlds of time. Children of pre-Adjuster ages are cared for in families of five, ranging in ages from one year and under up to approximately five years, or that age when the Adjuster arrives.

47:2.4 (532.2) All children on the evolving worlds who have Thought Adjusters, but who before death had not made a choice concerning the Paradise career, are also repersonalized on the finaliter world of the system, where they likewise grow up in the families of the Material Sons and their associates as do those little ones who arrived without Adjusters, but who will subsequently receive the Mystery Monitors after attaining the requisite age of moral choice.

47:2.5 (532.3) The Adjuster-indwelt children and youths on the finaliter world are also reared in families of five, ranging in ages from six to fourteen; approximately, these families consist of children whose ages are six, eight, ten, twelve, and fourteen. Any time after sixteen, if final choice has been made, they translate to the first mansion world and begin their Paradise ascent. Some make a choice before this age and go on to the ascension spheres, but very few children under sixteen years of age, as reckoned by Urantia standards, will be found on the mansion worlds.

47:2.6 (532.4) The guardian seraphim attend these youths in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finaliter world just as they spiritually minister to mortals on the evolutionary planets, while the faithful spornagia minister to their physical necessities. And so do these children grow up on the transition world until such time as they make their final choice.

47:2.7 (532.5) When material life has run its course, if no choice has been made for the ascendant life, or if these children of time definitely decide against the Havona adventure, death automatically terminates their probationary careers. There is no adjudication of such cases;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such a second death. They simply become as though they had not been.

47:2.8 (532.6) But if they choose the Paradise path of perfection, they are immediately made ready for translation to the first mansion world, where many of them arrive in time to join their parents in the Havona ascent. After passing through Havona and attaining the Deities, these salvaged souls of mortal origin constitute the permanent ascendant citizenship of Paradise. These children who have

서 가지는 가치 있고 본질적인 진화적 체험을 빼앗긴 이들 자녀들은 최종의 무리단에는 모집되지 않는다.

been deprived of the valuable and essential evolutionary experience on the worlds of mortal nativity are not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제 3 장. 첫 번째 맨션세계

맨션세계들에서, 부활된 필사자 생존자들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떠났던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너희가 유란시아로부터 첫 번째 맨션세계로 가게 되면, 너희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겠지만, 만일 너희가 시간의 보다 더 정상적이고 진보적인 구체로부터 왔었다면, 너희가 다른 몸체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너희는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장막과 피는 탄생되었던 세계에 남겨진다.

첫 번째 맨션세계의 모든 활동들의 가장 중심은 부활 강당, 개인성 회합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성전이다. 거창한 이 구조물은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들과 생각 조절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심 집결지에 존재한다. 생명운반자들 역시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서 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활약한다.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변환될 때의 필사자-마음 사본과 활동적인 창조체-기억 원형들들은 분리된 생각 조절자들의 개별적 소유물이다; 영으로 바뀐, 마음과 기억 그리고 창조체 개인성의 이 요소들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조절자들의 한 부분이다. 창조체 마음-모형과 정체성의 수동적 잠재는 세라핌천사의 운명 수호자들의 보호에 위탁된 모론시아 혼속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체 개인성을 다시 조합하고 잠자는 생존자의 부활을 구성하는 것은 세라핌천사의 모론시아-혼 신탁과 조절자의 영-마음 신탁의 재결합이다.

필사자 기원을 갖는 덧없는 개인성이 그렇게 재조합 되지 않는다면, 생존되지 못하는 필사 창조체의 영 요소들은 한 때 내주 하였던 조절자의 개별 체험 자질에서의 집대성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뻗어나간 일곱 개의 방사형(放射形) 부속건물들, 필사 종족들의 부활 강당들이 있다. 이 구조물들 각각은 시간의 일곱 종족들 중 하나의 집회에 헌신되어 있다. 원형의 학습 회합 강당들과 경계를 이루는 이 일곱 부속건물들 각각에는 100,000개의 개인 부활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백만 명에 달하는 개별존재들을 위한 깨어나는 방으로 사용된다. 이 강당들은 정상적인 아담의-세계-이후의 혼혈 종족들이 모이는, 개인성 회의실들로 둘러싸여 있다. 특별부활 또는 섭리시대 부활과 관련되어 개별 시간 세계들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법과는 상관없이, 실제적

3. THE FIRST MANSION WORLD

47:3.1 (532.7) On the mansion worlds the resurrected mortal survivors resume their lives just where they left off when overtaken by death. When you go from Urantia to the first mansion world, you will notice considerable change, but if you had come from a more normal and progressive sphere of time, you would hardly notice the difference except for the fact that you were in possession of a different body; the tabernacle of flesh and blood has been left behind on the world of nativity.

47:3.2 (532.8) The very center of all activities on the first mansion world is the resurrection hall, the enormous temple of personality assembly. This gigantic structure consists of the central rendezvous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s,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archangels of the resurrection. The Life Carriers also function with these celestial beings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47:3.3 (533.1) The mortal-mind transcripts and the active creature-memory patterns as transformed from the material levels to the spiritual are the individual possession of the detached Thought Adjusters; these spiritized factors of mind, memory, and creature personality are forever a part of such Adjusters. The creature mind-matrix and the passive potentials of identity are present in the morontia soul intrusted to the keeping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s. And it is the reuniting of the morontia-soul trust of the seraphim and the spirit-mind trust of the Adjuster that reassembles creature personality and constitutes resurrection of a sleeping survivor.

47:3.4 (533.2) If a transitory personality of mortal origin should never be thus reassembled, the spirit elements of the nonsurviving mortal creature would forever continue as an integral part of the individual experiential endowment of the onetime indwelling Adjuster.

47:3.5 (533.3) From the Temple of New Life there extend seven radial wings,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tal races. Each of these structures is devoted to the assembly of one of the seven races of time. There are one hundred thousand personal resurrection chambers in each of these seven wings terminating in the circular class assembly halls, which serve as the awakening chambers for as many as one million individuals. These halls are surrounded by the personality assembly chambers of the blended races of the normal post-Adamic worlds. Regardless of the technique

이고 완벽한 개인성의 실제적이고 의식적인 재(再)조합이 1번 맨션세계의 부활 강당들에서 발생된다. 영원에 두루,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너희가 처음 바라본 것에 대한 심원한 기억 속의 감명을 계속 되살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부활 강당들로부터 멜기세덱 구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는 영원한 거주지를 배정 받는다. 그 다음에 너희는 10일간의 개인적 해방을 갖는다. 너희는 자신의 새로운 집 바로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으며 바로 시작하게 될 프로그램에 스스로를 익숙하게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등록 상담에 대한 너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너희보다 먼저 이 세계들에게로 온 너희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다른 지구(地球)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0일 동안의 자유시간이 끝날 때 너희는 파라다이스 여행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맨션세계들은 단순히 붙잡아 두는 행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 구체기 때문이다.

1번 맨션세계에서 (혹은 진보된 지위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너희는 죽음에 의해 중지되었던 바로 그 차원에서 너희의 지적 훈련과 영적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행성에서의 죽음 또는 변환과 맨션세계에서의 부활 사이에서, 필사자 사람은 생존의 사실을 체험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곳에서 떠난 바로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작한다.

1번 맨션세계에서의 거의 모든 체험은 부족분 사명활동과 관계된다. 억류하는 이 첫 번째 구체에 도착하는 생존자들은 너무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필사자 체험의 창조체 성격 그리고 결함의 결점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역의 주요 활동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진화 세계에서 육신 속에서의 삶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이 습성들을 바로잡고 치료하는 일에 부과된다.

1번 맨션세계에 머무는 것은 최소한 정상적인 진화 세계의 아담의-이후 섭리시대의 지위까지 필사자 생존자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맨션세계 학생들은 그러한 상태의 단순한 인간 발달보다 훨씬 앞서 있다.

만약에 너희가 1번 맨션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는다면, 10일이 지난 후에 너희는 옮겨지기 위한 수면 속으로 들어가고 2번 세계로 진행하며, 그 후로 10일마다 너희는 너희가 배정될 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1번 맨션세계 관리-행정의 일곱 주요 순환계들 중양은 모론시아 동행자들, 상승하는 필사자들

which may be employed on the individual worlds of time in connection with special or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the real and conscious reassembly of actual and complete personality takes place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ion number one. Throughout all eternity you will recall the profound memory impressions of your first witnessing of these resurrection mornings.

47:3.6 (533.4) From the resurrection halls you proceed to the Melchizedek sector, where you are assigned permanent residence. Then you enter upon ten days of personal liberty. You are free to explore the immediate vicinity of your new home and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program which lies immediately ahead. You also have time to gratify your desire to consult the registry and call upon your loved ones and other earth friends who may have preceded you to these worlds. At the end of your ten-day period of leisure you begin the second step in the Paradise journey, for the mansion worlds are actual training spheres, not merely detention planets.

47:3.7 (533.5) On mansion world number one (or another in case of advanced status) you will resume your intellectual training and spiritual development at the exact level whereon they were interrupted by death. Between the time of planetary death or translation and resurrection on the mansion world, mortal man gains absolutely nothing aside from experiencing the fact of survival. You begin over there right where you leave off down here.

47:3.8 (533.6) Almost the entire experience of mansion world number one pertains to deficiency ministry. Survivors arriving on this first of the detention spheres present so many and such varied defects of creature character and deficiencies of mortal experience that the major activities of the realm are occupied with the correction and cure of these manifold legacies of the life in the flesh on the material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47:3.9 (534.1) The sojourn on mansion world number one is designed to develop mortal survivors at least up to the status of the post-Adamic dispensation on the normal evolutionary worlds. Spiritually, of course, the mansion world students are far in advance of such a state of mere human development.

47:3.10 (534.2) If you are not to be detained on mansion world number one, at the end of ten days you will enter the translation sleep and proceed to world number two, and every ten days thereafter you will thus advance until you arrive on the world of your assignment.

47:3.11 (534.3) The center of the seven major circles of the first mansion world administration is

에게 배정된 개인 안내자들의 성전이 차지하고 있다. 이 동행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며, 사타니아의 맨션계 세계들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그들이 존재한다. 집단적으로 배정된 그들을 제외하고, 너희는 통역자와 번역자들과 건물 보호관리자들과 그리고 여행 감독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행자들 전체는 모론시아 육체 속에 있는 마음 그리고 영으로 된 너희의 개인성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가장 협조적이다.

너희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출발할 때, 한 명의 모론시아 동행자가 1,000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들 각 무리에게 배정되지만, 너희는 일곱 맨션구체들을 통과하여 진행할 때 더 많은 숫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답고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동행할 수 있는 연관-동료들이며 매력 있는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그 위성 세계들을 포함하여 어떤 과도기-수양 구체에 대해서든지 개별존재들 또는 선택된 집단들에게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다. 그들은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의 여행 안내자이며 여가 시간의 동반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셈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존자 집단과 자주 동행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있는 중 어느 날, 너희는 체계 수도의 등록 구역으로 갈 수 있고 일곱 맨션세계들 전체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거주 지역과 체계 본부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여행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두 번째 맨션세계

너희가 맨션계 삶에 보다 더 충만하게 안내되는 것은 바로 이 구체에서이다. 모론시아 삶의 집단화가 형성되기 시작 한다; 일하는 집단들과 사회 계층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들이 공식적인 역할을 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새로운 사회 계층들과 정부 부서들을 발족시킨다.

영-융합 생존자들은 조절자-융합 상승 필사자들과 공동으로 맨션세계들을 차지한다. 천상의 생명의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다른 반면, 그들은 모두 친근하고 형제우애를 나눈다. 상승하는 과정의 모든 세계들에서 너희는 인간적 편협성과 인정 없는 특권계급 제도의 차별대우에 견줄 수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맨션세계들을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 그것들은 진보하는 생존자들의 모론시아 활동들로 더욱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맨션세계들에게 덧붙여진 예루셈 특성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유리 바다는 두 번째 맨션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맨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진보하는 각 단계마다 새롭게 발전되고 알맞게 조절된 모론시아

occupied by the temple of the Morontia Companions, the personal guides assigned to ascending mortals. These companions are the offspring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nd there are several million of them on the morontia worlds of Satania. Aside from those assigned as group companions, you will have much to do with th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the building custodians, and the excursion supervisors. And all of these companions are most co-operative with those who have to do with developing your personality factors of mind and spirit within the morontia body.

47:3.12 (534.4) As you start out on the first mansion world, one Morontia Companion is assigned to each company of one thousand ascending mortals, but you will encounter larger numbers as you progress through the seven mansion spheres. These beautiful and versatile beings are companionable associates and charming guides. They are free to accompany individuals or selected groups to any of the transition-culture spheres, including their satellite worlds. They are the excursion guides and leisure associates of all ascending mortals. They often accompany survivor groups on periodic visits to Jerusem, and on any day you are there, you can go to the registry sector of the system capital and meet ascending mortals from all seven of the mansion worlds since they freely journey back and forth between their residential abodes and the system headquarters.

4. THE SECOND MANSION WORLD

47:4.1 (534.5) It is on this sphere that you are more fully inducted into the mansonia life. The groupings of the morontia life begin to take form; working groups and social organizations start to function, communities take on formal proportions, and the advancing mortals inaugurate new social orders and governmental arrangements.

47:4.2 (534.6) Spirit-fused survivors occupy the mansion worlds in common with the Adjuster-fused ascending mortals. While the various orders of celestial life differ, they are all friendly and fraternal. In all the worlds of ascension you will find nothing comparable to human intolerance and the discriminations of inconsiderate caste systems.

47:4.3 (534.7) As you ascend the mansion worlds one by one, they become more crowded with the morontia activities of advancing survivors. As you go forward, you will recognize more and more of the Jerusem features added to the mansion worlds. The sea of glass makes its appearance on the second mansonia.

47:4.4 (534.8) A newly developed and suitably adjusted morontia body is acquired at the time of

육체가 획득된다. 너희는 세라핌천사 운송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고 부활 강당에서 새로운 그러나 발전되지 않은 육체와 함께 깨어나는데, 맨션세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과 수면 동안 생각 조절자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너희가 1번 맨션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너희가 일단 진화 세계들로부터 첫 맨션세계로 옮겨진 후에는 너희 개인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너희 조절자 기억은 너희가 모론시아 삶으로 상승할 때의 상태로 충만하게 남아 있다. 순전히 동물적이고 전적으로 물질적이었던 그러한 정신적 관계적-연합은 물질적인 뇌와 함께 자연적으로 쇠퇴되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생존 가치가 있었던 너희 정신적 삶의 모든 것들은 조절자에 의해 복사되었으며 상승 생애에 두루 모든 과정에서 개인적인 기억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너희가 한 맨션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그리고 우주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곳으로—심지어는 파라다이스로—전진할 때 너희는 보람 있는 모든 체험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론시아 육체들을 갖더라도, 이 일곱 세계들 모두에서 너희는 계속 먹고 마시고 쉴 것이다. 너희는 모론시아 계층의 음식, 물질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살아있는 에너지 계를 섭취한다. 음식과 물은 모두 모론시아 육체 안에서 충만하게 활용된다; 거기에는 남아 있는 찌꺼기가 없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 1번 맨션계는 매우 물질적인 구체인데, 모론시아 체제의 초기 출발을 보여준다. 너희는 여전히 인간에 가깝고 필사자 삶의 제한된 관점으로부터 그리 멀리 옮겨지지 않았지만, 각 세계는 분명한 진보를 보여준다. 구체를 옮길 때마다 너희는 점점 덜 물질적이 되고 더욱 지적이 되며 약간 더 영적으로 변한다. 영적인 진보는 이 일곱 진보 세계들 중 마지막 세 곳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결핍은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대부분 보상되어지는 것이다. 성(性) 생활, 가족 관계적-연합 그리고 어버이의 기능과 관련된 행성 체험에서의 결점은 그곳에서 교정되든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 가족 가운데에서의 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진다.

2번 맨션계는 지적 모순의 모든 위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그리고 정신적 부조화의 모든 다양성을 치료하는 일에 더욱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시작되었던, 모론시아 모타의 의의(意義)를 숙달하려는 노력이 여기에서 더욱 진지하게 계속된다. 2번 맨션계에서의 발달은 이상적인 진화 세계에서의 치안법관 아들-이후의 지적 지위와 비교된다.

each advance from one mansion world to another. You go to sleep with the seraphic transport and awake with the new but undeveloped body in the resurrection halls, much as when you first arrived on mansion world number one except that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leave you during these transit sleeps between the mansion worlds. Your personality remains intact after you once pas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to the initial mansion world.

47:4.5 (535.1) Your Adjuster memory remains fully intact as you ascend the morontia life. Those mental associations that were purely animalistic and wholly material naturally perished with the physical brain, but everything in your mental life which was worth while, and which had survival value, was counterparted by the Adjuster and is retained as a part of personal memory all the way through the ascendant career. You will be conscious of all your worth-while experiences as you advance from one mansion world to another and from one section of the universe to another — even to Paradise.

47:4.6 (535.2) Though you have morontia bodies, you continue, through all seven of these worlds, to eat, drink, and rest. You partake of the morontia order of food, a kingdom of living energy unknown on the material worlds. Both food and water are fully utilized in the morontia body; there is no residual waste. Pause to consider: Mansonia number one is a very material sphere, presenting the early beginnings of the morontia regime. You are still a near human and not far removed from the limited viewpoints of mortal life, but each world discloses definite progress. From sphere to sphere you grow less material, more intellectual, and slightly more spiritual. The spiritual progress is greatest on the last three of these seven progressive worlds.

47:4.7 (535.3) Biological deficiencies were largely made up on the first mansion world. There defects in planetary experiences pertaining to sex life, family association, and parental function were either corrected or were projected for future rectification among the Material Son families on Jerusem.

47:4.8 (535.4) Mansonia number two more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 removal of all phases of intellectual conflict and for the cure of all varieties of mental disharmony. The effort to master the significance of morontia mota, begun on the first mansion world, is here more earnestly continued. The development on mansonia number two compares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of the post-Magisterial Son culture of the ideal evolutionary worlds.

제 5 장. 세 번째 맨션세계

5. THE THIRD MANSION WORLD

세 번째 맨션계는 맨션세계 교사들의 본부이다. 비록 그들이 일곱 맨션 구체들 전체에서 기능하지만, 그들은 3번 세계의 학교 순환계들의 중심에 그들의 집단 본부를 두고 있다. 맨션과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수백만 명의 이들 강사들이 있다. 진보되고 영화롭게 된 이 케루빔들은 맨션세계들로부터 지역우주 상승자 훈련의 마지막 구체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에서 모론시아 선생들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작별인사를 나누는 때가 가까이 올 때 너희에게 애정 어린 고별인사를 하는 마지막 존재들 중에 속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너희가 기원된 우주에게 마지막 인사—적어도 몇 세기 동안—를 하며, 그때 너희는 초우주의 하위 구역에 해당하는 접수 세계들로 옮겨지기 위해 세라핌천사 안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 머무를 때, 너희는 최종자의 본부이며 개발되지 않은 진화적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체계 시험 유아원인, 과도기 세계들 중 첫 번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너희가 2번 맨션계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는 2번 과도기 세계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들이는데, 그곳에는 사타니아 전체를 위한 모론시아 감독자 본부와 다양한 모론시아 계층들을 위한 훈련 학교들이 있다. 너희가 3번 맨션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는 세 번째 과도기 구체, 그들의 다양한 체계 훈련 학교들의 고향과 천사 계층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즉시 부여받는다. 이 세계로부터 예루셈을 방문하는 일들은 점점 더 유익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에게 항상-증가되는 흥미를 준다.

세 번째 맨션계는 필사자 출생 세계들에서 육신으로부터 이탈되기 전에 이 훈련 순환계들에게 대등하도록 만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성취의 세계이다. 이 구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교육 작업이 시작된다. 처음 두 개의 맨션세계들에서의 훈련은 육신 안에서의 삶의 체험을 보충해야만 하는 결핍 특징—소극적인—에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 세 번째 맨션세계에서 생존자들은 그들의 진보적 모론시아 훈련을 실제적으로 시작한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모론시아 모타와 인간 이치의 상호관계, 모론시아 모타와 필사자 철학의 조화-협동에 대한 납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이 때 참된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통찰력을 얻는다. 이것이 우주적 의미들과 우주 상호관계들의 지능적 이해에 대한 실제적 해설이다. 세 번째 맨션세계에서의 수양은 거주민이 사는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아들 증여-이후 시대의 본성을 띠고 있다.

제 6 장. 네 번째 맨션세계

너희가 네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47:5.1 (535.5) *Mansonia the third is the headquarters of the Mansion World Teachers. Though they function on all seven of the mansion spheres, they maintain their group headquarters at the center of the school circles of world number three. There are millions of these instructors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These advanced and glorified cherubim serve as morontia teachers all the way up from the mansion worlds to the last sphere of local universe ascendant training. They will be among the last to bid you an affectionate adieu when the farewell time draws near, the time when you bid good-bye — at least for a few ages — to the universe of your origin, when you enseraphim for transit to the receiving worlds of the minor sector of the superuniverse.*

47:5.2 (535.6) *When sojourning on the first mansion world, you have permission to visit the first of the transition worlds, the headquarters of the finaliters and the system probationary nursery for the nurture of undeveloped evolutionary children. When you arrive on mansonia number two, you receive permission periodically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two, where are located the morontia supervisor headquarters for all Satania and the training schools for the various morontia orders. When you reach mansion world number three, you are immediately granted a permit to visit the third transition sphere, the headquarters of the angelic orders and the home of their various system training schools. Visits to Jerusem from this world are increasingly profitable and are of ever-heightening interest to the advancing mortals.*

47:5.3 (536.1) *Mansonia the third is a world of great personal and social achievement for all who have not made the equivalent of these circles of culture prior to release from the flesh on the mortal nativity worlds. On this sphere more positive educational work is begun. The training of the first two mansion worlds is mostly of a deficiency nature — negative — in that it has to do with supplementing the experience of the life in the flesh. On this third mansion world the survivors really begin their progressive morontia culture. The chief purpose of this training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correlation of morontia mota and mortal logic, the co-ordination of morontia mota and human philosophy. Surviving mortals now gain practical insight into true metaphysics. This is the real introduction to the intelligent comprehension of cosmic meanings and universe interrelationships. The culture of the third mansion world partakes of the nature of the postbestowal Son age of a normal inhabited planet.*

6. THE FOURTH MANSION WORLD

47:6.1 (536.2) *When you arrive on the fourth mansion world, you have well entered upon the morontia*

너희는 이미 모론시아 생애에 잘 들어갔으며; 너희는 최초의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먼 거리를 진보해 왔다. 이제 너희는 4번 과도기 세계에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너희는 찬란한 저녁별을 포함하여 특급천사들의 본부 그리고 훈련 학교들에 익숙하게 된다. 네 번째 과도기 세계의 이 특급천사들의 선한 직책을 통하여 모론시아 방문자들은 예루셈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하느님의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체계 본부의 새로운 구역들은 진보하는 필사자들이 본부 세계에 대한 이 반복된 방문을 할 때 그들에게 점점 더 열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관들이 이 상승자들의 확대하는 마음들에게 점진적으로 펼쳐진다.

네 번째 맨션계에서 개별 상승자는 모론시아 삶의 집단 작업과 학급 기능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점점 더 적절하게 발견한다. 상승자들은 지역 우주 수양과 진보의 방송 그리고 다른 위상들에 대해 증가된 깊은 감상을 여기에서 개발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창조체들의 참된 사회적 삶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환희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일은 실제로 4번 세계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있다. 그리고 개인적 웅대함도 아니고 자아-탐구에서의 정복에도 기초를 두지 않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진화적 창조체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체험이다.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간의 깊이 알아차리는 납득하는 동정심과 서로간의 봉사하는 사심-없는 사랑 그리고 공통의 그리고 최극의 운명—경배해야 할 그리고 신성한 완전의 파라다이스 목표—의 실현에 대한 압도적 동기이다. 상승자들은 모두 하느님-알기, 하느님-게시, 하느님-추구, 그리고 하느님-발견에서의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

이 네 번째 세계의 지적 그리고 사회적 수양은 정상적인 진화의 행성들에서의 교사 아들-이후시대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삶과 비교된다. 영적 지위는 그러한 필사자 섭리시대보다 훨씬 앞선다.

제 7 장. 다섯 번째 맨션세계

다섯 번째 맨션세계로 옮기는 것은 모론시아 진보자의 삶에 있어서 앞을 향한 거대한 한 걸음에 상당한다. 이 세계에서의 체험은 예루셈 삶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너희는 충성스러운 진화 세계들의 높은 운명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행성 발달 동안 이 단계를 향해 정상적으로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맨션세계의 수양은 정상적인 진화 진보의 행성들에서 빛과 생명의 초기 시대의 그것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career; you have progressed a long way from the initial material existence. Now are you given permission to make visits to transition world number four, ther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headquarters and training schools of the superangels, including the Brilliant Evening Stars. Through the good offices of these superangels of the fourth transition world the morontia visitors are enabled to draw very close to the various orders of the Sons of God during the periodic visits to Jerusalem, for new sectors of the system capital are gradually opening up to the advancing mortals as they make these repeated visits to the headquarters world. New grandeurs are progressively unfolding to the expanding minds of these ascenders.

47:6.2 (536.3) On the fourth mansionia the individual ascender more fittingly finds his place in the group working and class functions of the morontia life. Ascenders here develop increased appreciation of the broadcasts and other phases of local universe culture and progress.

47:6.3 (536.4) It is during the period of training on world number four that the ascending mortals are really first introduced to the demands and delights of the true social life of morontia creatures. And it is indeed a new experience for evolutionary creatures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hich are predicated neither on personal aggrandizement nor on self-seeking conquest. A new social order is being introduced, one based on the understanding sympathy of mutual appreciation, the unselfish love of mutual service, and the overmastering motivation of the realization of a common and supreme destiny — the Paradise goal of worshipful and divine perfection. Ascenders are all becoming self-conscious of God-knowing, God-revealing, God-seeking, and God-finding.

47:6.4 (536.5)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ulture of this fourth mansion world is comparable to the mental and social life of the post-Teacher Son age on the planets of normal evolution. The spiritual status is much in advance of such a mortal dispensation.

7. THE FIFTH MANSION WORLD

47:7.1 (537.1) Transport to the fifth mansion world represents a tremendous forward step in the life of a morontia progressor. The experience on this world is a real foretaste of Jerusalem life. Here you begin to realize the high destiny of the loyal evolutionary worlds since they may normally progress to this stage during their natural planetary development. The culture of this mansion world corresponds in general to that of the early era of light and life on the planets of normal evolutionary

로부터 너희는, 그것이 왜 그렇게 배열됨으로써 이 진보된 진화 세계들에서 한 때 거주하였던 높게 수양되고 진보된 유형의 존재들이 맨션 구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심지어는 전체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부터 제외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네 번째 맨션세계를 떠나기 전에 지역우주 언어를 숙달함으로써, 너희는 이제 거주권을 갖고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에 두 언어들에 있어서 능숙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유버사의 방언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들은 체계 본부로부터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그 뒤에는 단지 초우주 어휘를 커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라다이스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로 커지는 것이 요구된다.

5번 맨션계에 도착하면, 순례자들은 대응되는 숫자의 과도기 세계, 아들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여기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신성한 아들관계의 다양한 집단들과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그는 이미 이 뛰어난 존재들에 대해 들은바 있으며 예루셈에서 이미 만났지만, 이제 그는 그들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

다섯 번째 맨션계에서 너희는 별자리 연구 세계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그 다음의 별자리 체류를 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강사들 중 첫 번째를 만난다. 준비의 대부분은 6번과 7번 세계에서 계속되는 반면, 완결하는 접착이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구역에서 제공된다.

조화우주 의식의 실제 탄생은 5번 맨션계에서 발생된다. 너희는 우주를 마음에 두게 된다. 이것은 정말로 지평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확대하는 마음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어떤 엄청나고 훌륭한, 어떤 숭고하고 신성한 운명이 진보적인 파라다이스 상승을 완성한 모든 존재들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그토록 힘들게 그러나 그토록 기쁘고 경사스럽게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 가까워지면 평균적인 필사자 상승자는 하보나 상승을 향한 진실한 체험적 열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연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심없는 봉사는 자연스러워지며, 경배는 자연적인 것이 된다. 참된 모론시아 성격이 싹트며; 참된 모론시아 창조체가 계속 진화한다.

progress. And from this you can understand why it is so arranged that the highly cultured and progressive types of beings who sometimes inhabit these advanced evolutionary worlds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one or more, or even all, of the mansion spheres.

47.7.2 (537.2) Having mastered the local universe language before leaving the fourth mansion world, you now devote more time to the perfection of the tongue of Uversa to the end that you may be proficient in both languages before arriving on Jerusalem with residential status. All ascending mortals are bilingual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up to Havona. And then it is only necessary to enlarge the superuniverse vocabulary, still additional enlargement being required for residence on Paradise.

47.7.3 (537.3) Upon arrival on mansonia number five the pilgrim is given permission to visit the transition world of corresponding number, the Sons' headquarters. Here the ascendant mortal becomes personally familiar with the various groups of divine sonship. He has heard of these superb beings and has already met them on Jerusalem, but now he comes really to know them.

47.7.4 (537.4) On the fifth mansonia you begin to learn of the constellation study worlds. Here you meet the first of the instructors who begin to prepare you for the subsequent constellation sojourn. More of this preparation continues on worlds six and seven, while the finishing touches are supplied in the sector of the ascending mortals on Jerusalem.

47.7.5 (537.5) A real birth of cosmic consciousness takes place on mansonia number five. You are becoming universe minded. This is indeed a time of expanding horizons. It is beginning to dawn upon the enlarging minds of the ascending mortals that some stupendous and magnificent, some supernal and divine, destiny awaits all who complete the progressive Paradise ascension, which has been so laboriously but so joyfully and auspiciously begun. At about this point the average mortal ascender begins to manifest bona fide experiential enthusiasm for the Havona ascent. Study is becoming voluntary, unselfish service natural, and worship spontaneous. A real morontia character is budding; a real morontia creature is evolving.

제 8 장. 여섯 번째 맨션세계

이 구체에 머무는 존재들은 6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하도록 허락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 천상의 존재들 대부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초우주의 높은 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또한 여기에서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훈련으로부터 졸업한 직후에 따라오는 예기된 영 생애에

8. THE SIXTH MANSION WORLD

47.8.1 (537.6) Sojourners on this sphere are permitted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six, where they learn more about the high spirits of the superuniverse, although they are not able to visualize many of these celestial beings. Here they also receive their first lessons in the prospective

있어서의 그들의 첫 번째 수업을 받아들인다.

체계 주권자의 보좌관이 이 세계에 자주 방문하며, 우주 관리-행정의 기법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전체 우주의 관련사를 포함하는 첫 번째 학습이 이제 시작된다.

이것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찬란한 시대이며 인간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의 완전한 융합을 대개 목격한다. 잠재의 면에서 보면, 이 융합은 그 전에 발생되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정체성은 다섯 번째 맨션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여섯 번째에서 머무는 시기까지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하고 신성한 조절자와 연합하는 일은 부활된 생존자들을 위해 감독하는 특급천사들을 호출하는 그리고 제 3일에 그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가게 하는 기록하는 천사장을 호출하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신호를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생존자의 모론시아 연관-동료들 앞에서 확증하는 이 메신저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간단한 이 의식이 상승하는 필사자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봉사의 영원한 생애에 들어가게 만든다.

조절자 융합이 확정되는 즉시로 새로운 모론시아 존재는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서 처음으로 그의 동료들에게 소개되며, 그 자신과 교체하는, 그리고 하보나에 이르는 임의의 경로들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그리고 파라다이스 성취의 서로 다른 기법을 선택하는 모든 일상적 활동들로부터 떠나 40일간의 영적 은거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찬란한 이 존재들은 여전히 다소 물질적이다; 그들은 참된 영들이 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초(超)필사자에 더 가까운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직도 천사들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창조체들이 되어가고 있다.

6번 세계에 머무는 동안 맨션세계 학생들은 빛과 생명의 첫 단계를 넘어서 정상적으로 진보된 진화 세계들의 특징을 이루는 고양된 발전과 비교될 수 있다. 이 맨션계에 있는 공동체의 조직은 높은 조직이다. 이 세계들을 하나씩 상승하면서 필사자 본성의 그림자는 점점 더 줄어든다. 너희가 행성의 동물적 기원의 거친 흔적으로부터 떠남에 따라 점점 더 흥미를 받을 존재가 된다. “거대한 시련을 통과하여 다가오는 것”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로 하여금 매우 친절하고 납득하고, 매우 동정심이 많고 인내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spirit career which so immediately follows graduation from the morontia training of the local universe.

47:8.2 (537.7) The assistant System Sovereign makes frequent visits to this world, and the initial instruction is here begun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administration. The first lessons embracing the affairs of a whole universe are now imparted.

47:8.3 (538.1) This is a brilliant age for ascending mortals and usually witnesses the perfect fusion of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In potential, this fusion may have occurred previously, but the actual working identity many times is not achieved until the time of the sojourn on the fifth mansion world or even the sixth.

47:8.4 (538.2) The union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with the eternal and divine Adjuster is signaled by the seraphic summoning of the supervising superangel for resurrected survivors and of the archangel of record for those going to judgment on the third day; and then, in the presence of such a survivor's morontia associates, these messengers of confirmation speak: “This is a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This simple ceremony marks the entrance of an ascending mortal upon the eternal career of Paradise service.

47:8.5 (538.3) Immediately upon the confirmation of Adjuster fusion the new morontia being is introduced to his fellows for the first time by his new name and is granted the forty days of spiritual retirement from all routine activities wherein to commune with himself and to choose some one of the optional routes to Havona and to select from the differential techniques of Paradise attainment.

47:8.6 (538.4) But still are these brilliant beings more or less material; they are far from being true spirits; they are more like supermortals, spiritually speaking, still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But they are truly becoming marvelous creatures.

47:8.7 (538.5) During the sojourn on world number six the mansion world students achieve a status which is comparable with the exalted development characterizing those evolutionary worlds which have normally progressed beyond the initial stage of light and life. The organization of society on this mansionia is of a high order. The shadow of the mortal nature grows less and less as these worlds are ascended one by one. You are becoming more and more adorable as you leave behind the coarse vestiges of planetary animal origin. “Coming up through great tribulation” serves to make glorified mortals very kind and understanding, very sympathetic and tolerant.

제 9 장. 일곱 번째 맨션세계

이 구체에서의 체험은 필사자-이후의 생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성취이다. 너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너희는 많은 선생들의 지침을 받아들이는데, 그들 모두는 너희를 예루셈에 거주하도록 준비하는 임무 속에서 협동하게 될 것이다. 고립되고 뒤진 세계들로부터 오는 필사자들과 더욱 진보되고 깨워진 구체들로부터 생존된 그들 사이의 모든 식별 가능한 차이점들이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머무는 동안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여기에서 너희는 불행한 유전과 유해한 환경 그리고 비(非)영적인 행성 경향들의 모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제거될 것이다. “짐승의 흔적”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 여기에서 뿌리째 뽑힌다.

7번 맨션계에 머무는 동안, 7번 과도기 세계, 우주 아버지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여기에서 너희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대한 새롭고도 더욱 영적인 경배, 너희의 긴 상승하는 생애들에 두루 점점 더 너희가 추구하게 될 습관을 시작한다. 너희는 과도기 문화의 이 세계에서 아버지의 성전을 발견하지만, 너희가 아버지를 보지는 못한다.

이제는 예루셈을 향해 졸업하기 위한 학습들이 향상되기 시작한다. 너희는 이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개별적으로 갔지만, 이제 너희는 집단을 이루어 예루셈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들 속에서, 상승자는 자신의 지구상에서 또는 맨션계 작업 집단의 뒤쳐진 일원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다.

거주 지위를 가지고 예루셈을 향해 출발하는 너희를 보기 위해 일곱 번째 맨션계의 사람들이 유리 바다에 모인다. 너희가 예루셈을 수백 수천 번 동안 방문할 수 있지만, 항상 손님으로 그렇게 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서 맨션계 생애 전체에 영원한 작별을 알리는 동료들의 한 무리와 일행을 이루어, 체계 수도를 향해 나아간 적이, 너희에게 결코 없었다. 너희는 예루셈 시민으로서 본부 세계의 접수하는 뜰에서 곧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곱 개의 비(非)물질화 구체들을 통한 너희의 진보를 크게 즐기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불멸화 시키는 구체들이다. 너희는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데, 물질적인 몸체만 제거한 필사 존재, 모론시아 형태—육신과 피로 된 필사자 집이 아닌 모론시아 세계의 물질적 몸체—안에 거주하는 인간 마음과 같다. 너희는 조절자 융합이 이루어지는 때에 필사자 상태에서 불멸의 지위로 옮겨지며, 그때 너희는 예루셈 생애를 완결하고 충만하게-성장한 모론시아인이 될 것이다.

9. THE SEVENTH MANSION WORLD

47:9.1 (538.6) The experience on this sphere is the crowning achievement of the immediate postmortal career. During your sojourn here you will receive the instruction of many teachers, all of whom will co-operate in the task of preparing you for residence on Jerusalem. Any discernible differences between those mortals hailing from the isolated and retarded worlds and those survivors from the more advanced and enlightened spheres are virtually obliterated during the sojourn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Here you will be purged of all the remnants of unfortunate heredity, unwholesome environment, and unspiritual planetary tendencies. The last remnants of the “mark of the beast” are here eradicated.

47:9.2 (538.7) While sojourning on mansonia number seven, permission is granted to visit transition world number seven, the world of the Universal Father. Here you begin a new and more spiritual worship of the unseen Father, a habit you will increasingly pursue all the way up through your long ascending career. You find the Father's temple on this world of transitional culture, but you do not see the Father.

47:9.3 (538.8) Now begins the formation of classes for graduation to Jerusalem. You have gone from world to world as individuals, but now you prepare to depart for Jerusalem in groups, although, within certain limits, an ascender may elect to tarry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a tardy member of his earthly or mansonia working group to catch up with him.

47:9.4 (539.1) The personnel of the seventh mansonia assemble on the sea of glass to witness your departure for Jerusalem with residential status. Hundreds or thousands of times you may have visited Jerusalem, but always as a guest; never before have you proceeded toward the system capital in the company of a group of your fellows who were bidding an eternal farewell to the whole mansonia career as ascending mortals. You will soon be welcomed on the receiving field of the headquarters world as Jerusalem citizens.

47:9.5 (539.2) You will greatly enjoy your progress through the seven dematerializing worlds; they are really demortalizing spheres. You are mostly human on the first mansion world, just a mortal being minus a material body, a human mind housed in a morontia form — a material body of the morontia world but not a mortal house of flesh and blood. You really pass from the mortal state to the immortal status at the time of Adjuster fusion, and by the time you have finished the Jerusalem career, you will be full-fledged morontians.

제 10 장. 예루셈 시민권

새로운 등급의 맨션세계 졸업장을 받는 것은 환영 위원회로서 모이게 하는 예루셈 전체에 대한 신호이다. 행성에서의 종족으로 달려왔으며 맨션세계 진보를 완결한 저들, 진화적 기원을 갖는 이들 승리한 상승자들의 도착을 스포르나기아마저도 즐긴다. 오직 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만이 이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게시자 요한은 일곱 번째 모론시아 세계로부터 그들의 첫 번째 하늘, 예루셈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한 무리의 도착 광경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니, 마치 불과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의 몸 안에 기원적으로 있었던 짐승을 이기고, 그리고 맨션세계들에 두루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형상을 누르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표시와 흔적을 눌러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느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필사자 공포와 죽음에서의 해방에 대한 노래를 부르더라.” (완전하게 된 우주 통신이 이들 모든 세계에 있게 된다; 그러한 통신을 너희가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미숙한 모론시아 감각 기능구조를 우주 통신 청취에 직접 맞추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상하는 모론시아 고안품, “하느님의 거문고”를 갖고 다님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바울 역시 예루셈에서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들의 상승자-시민 무리단을 보았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에게, 미가엘의 광대한 집회에,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의로운 사람들의 영에게 왔도다.”

필사자들이 체계 본부에서 거주지를 갖게 된 후에, 글자 그대로 부활은 더 이상 체험되지 않는다. 맨션세계 생애로부터 떠날 때 너희에게 수여된 모론시아 형체는 지역우주 체험의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때때로 변화들이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상승하는 수양과 영 훈련의 초우주 세계들을 향해 옮겨지도록 준비된 첫-단계 영들로서 너희가 떠오를 때 너희가 그것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동일한 이 형체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전체 맨션계 생애를 통과한 그 필사자들은 일곱 번에 걸쳐서 조절 수면과 부활의 깨어남을 체험한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강당, 최종적인 깨어남의 방은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 남겨졌다. 형태-변화는 더 이상 의식의 상실이나 또는 개인적 기억의 연속성의 단절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10. JERUSEM CITIZENSHIP

47:10.1 (539.3) The reception of a new class of mansion world graduates is the signal for all Jerusem to assemble as a committee of welcome. Even the spornagia enjoy the arrival of these triumphant ascenders of evolutionary origin, those who have run the planetary race and finished the mansion world progression. Only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sent from these occasions of rejoicing.

47:10.2 (539.4) John the Revelator saw a vision of the arrival of a class of advancing mortals from the seventh mansion world to their first heaven, the glories of Jerusem. He recorded: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ose who had gained the victory over the beast that was originally in them and over the image that persisted through the mansion worlds and finally over the last mark and trace, standing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and singing the song of deliverance from mortal fear and death.” (Perfect space communication is to be had on all these worlds; and your anywhere reception of such communications is made possible by carrying the “harp of God,” a morontia contrivance compensating for the inability to directly adjust the immature morontia sensory mechanism to the reception of space communications.)

47:10.3 (539.5) Paul also had a view of the ascendant-citizen corps of perfecting mortals on Jerusem, for he wrote: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and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to the grand assembly of Michael, and to the spirits of just men being made perfect.”

47:10.4 (539.6) After mortals have attained residence on the system headquarters, no more literal resurrections will be experienced. The morontia form granted you on departure from the mansion world career is such as will see you through to the end of the local universe experience. Changes will be made from time to time, but you will retain this same form until you bid it farewell when you emerge as first-stage spirits preparatory for transit to the superuniverse worlds of ascending culture and spirit training.

47:10.5 (540.1) Seven times do those mortals who pass through the entire mansonia career experience the adjustment sleep and the resurrection awakening. But the last resurrection hall, the final awakening chamber, was left behind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No more will a form-change necessitate the lapse of consciousness or a break in the continuity of personal memory.

진화 세계들에서 시작되었고 육신 속에 임시로 살았던—신비 관찰자들이 내주되었던 그리고 진리의 영이 부여졌던—필사자 개인성은, 그러한 예루셈 시민에게 에덴시아에 대한 입국허가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네바돈의 모론시아 무리단의 참된 성원—조절자 관계적-연합의 불멸의 생존자, 파라다이스 상승자, 모론시아 지위의 개인성, 그리고 지고자의 참된 자녀—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충만하게 동원되고 실현되고 통합되지 않는다.

필사자의 죽음은 육신 속에서의 물질적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한 기법이다; 교정하는 훈련과 교양 교육의 일곱 세계들을 통한 점진적 삶의 맨션계 체험은, 영원의 관문을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시간에서의 상승자들의 더욱 높은 영 성취와 그리고 진화적 물질 실존 사이에 끼어 있는 과도기 삶, 모론시아 생애에 대한 안내를 필사자 생존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후원되었음]

47:10.6 (540.2) The mortal personality initiated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tabernacled in the flesh — indwelt by the Mystery Monitors and invested by the Spirit of Truth — is not fully mobilized, realized, and unified until that day when such a Jerusalem citizen is given clearance for Edentia and proclaimed a true member of the morontia corps of Nebadon — an immortal survivor of Adjuster association, a Paradise ascender, a personality of morontia status, and a true child of the Most Highs.

47:10.7 (540.3) Mortal death is a technique of escape from the material life in the flesh; and the mansonia experience of progressive life through seven worlds of corrective training and cultural education represents the introduction of mortal survivors to the morontia career, the transition life which intervenes between the evolutionary material existence and the higher spirit attainment of the ascenders of time who are destined to achieve the portals of eternity.

47:10.8 (540.4) [Sponsor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제 48 편 모론시아 일생

⇨ 047

유랜시아 책

049 ⇨

부 II. 지역우주

제 48 편 모론시아 일생

섹션

소개

제 1 장. 모론시아 물질

제 2 장. 모론시아 힘 감독자

제 3 장. 모론시아 동행자

제 4 장. 복귀 지도자

제 5 장. 맨션세계 선생

제 6 장. 모론시아 세계 세라핌 천사-과도

기 사명활동자

제 7 장. 모론시아 모타

제 8 장. 모론시아 진보자들

PAPER 48

THE MORONTIA LIFE

SECTIONS

Introduction

1. Morontia Materials

2. Morontia Power Supervisors

3. Morontia Companions

4. The Reversion Directors

5. The Mansion World Teachers

6. Morontia World Seraphim — Transition Ministers

7. Morontia Mota

8. The Morontia Progressors

소개

하느님들은 총체적 동물 본성의 창조체를 어떤 창조적 마술의 신비로운 행위로 완전하게 된 영으로 변환시킬 수—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없다. 창조자들이 완전한 존재들을 만들고자 할 때, 그들은 직접적이고 기원적인 창조에 의해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동물로부터 기원된 물질적인 창조체들을 단 한 번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존재로 바꾸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모론시아 삶은, 지역우주 생애의 다양한 단계들에 퍼져있으며, 물질적 필사자들이 영 세계의 입구에 도달에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 방법이다. 무슨 마술이 물질적인 육체의 자연적인 괴멸인 죽음으로 그러한 단순한 한 단계를 통해 즉시 필사이며 물질적인 마음을 불멸의 그리고 완전한 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믿음들은 무식한 미신들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이다.

이 모론시아 과도기는 필사자 지위와 그 이후의 생존되는 인간 존재들의 영 지위 사이에 항상 개입한다. 우주 진보에서의 이 중간 상태는 다양한 지역 창조체들에서 현저하게 다르지만, 의도와

INTRODUCTION

48:0.1 (541.1) THE Gods cannot — at least they do not — transform a creature of gross animal nature into a perfected spirit by some mysterious act of creative magic. When the Creators desire to produce perfect beings, they do so by direct and original creation, but they never undertake to convert animal-origin and material creatures into beings of perfection in a single step.

48:0.2 (541.2) The morontia life, extending as it does over the various stages of the local universe career, is the only possible approach whereby material mortals could attain the threshold of the spirit world. What magic could death, the natural dissolution of the material body, hold that such a simple step should instantly transform the mortal and material mind into an immortal and perfected spirit? Such beliefs are but ignorant superstitions and pleasing fables.

48:0.3 (541.3) Always this morontia transition intervenes between the mortal estate and the subsequent spirit status of surviving human beings. This intermediate state of universe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매우 비슷하다. 네바돈 안에 있는 맨션과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의 배치는 오르본톤의 이 부분에 있는 모론시아 과도기 체제 중에서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제 1 장. 모론시아 물질

모론시아 영역들은 창조체 실존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차원 중간에 있는 지역우주 연락 구체들이다. 이 모론시아 삶은 행성영주의 초기 시대부터 유란시아에 알려져 왔다. 이 과도기 상태가 때때로 필사자들에게 가르쳐져 왔으며, 개념이 왜곡된 형태로 지금-현재의 종교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모론시아 구체들은 지역우주의 진보 세계들을 통한 필사자 상승의 과도기 위상들이다. 지역 체계의 최종자의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들만이 맨션세계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56개의 전체 체계 과도기 거주지들은, 통상적으로 보다 높은 구체들이 별자리들과 우주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모론시아 세계들이라고 불린다. 이 창조세계들은 물리적 아름다움과 지역우주 본부 구체들의 모론시아 장관을 띠고 있다.

이들 세계들 전체는 고안건축 구체들이며, 그것들은 진화 행성들의 꼭 두 배의 원소 숫자를 가지고 있다.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들은 100개의 물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중금속들과 수정체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물질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에너지 유기 조직인 정확히 100개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주(主)물리통제자들과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물질의 1차 단위들의 순환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의 이 관계적-연합들을 변환시켜 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지역체계들에서의 초기 모론시아 삶은 너희의 현재 물질세계에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며, 별자리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덜 물리적이고 더욱 참된 모론시아적 으로 바뀐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자별 구체들로 진보함에 따라, 너희는 점점 더 영적인 차원들을 달성한다.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물질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의 연합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서 통제하는 영의 초(超)부담(負擔)을 잘 받아들이는 물질화의 모론시아 형태를 조직한다.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삶을 통과할 때, 끈기 있고 능숙한 이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570가지 모론시아 몸체들을 너희에게 연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그 각각은 너희의 진보적 변환의 한 위상이다. 너희가 물질적 세계들을 떠날 때부터 너희가 구원자별에서 첫-단계 영으로 구성될 때까지, 너희는 정확하게 570번의 독립적인 그리고 상승하는 모론시아

progress differs markedly in the various local creations, but in intent and purpose they are all quite similar. The arrangement of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in Nebadon is fairly typical of the morontia transition regimes in this part of Orvonton.

1. MORONTIA MATERIALS

48:1.1 (541.4) The morontia realms are the local universe liaison spheres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levels of creature existence. This morontia life has been known on Urantia since the early days of the Planetary Prince. From time to time this transition state has been taught to mortals, and the concept, in distorted form, has found a place in present-day religions.

48:1.2 (541.5) The morontia spheres are the transition phases of mortal ascension through the progression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Only the seven worlds surrounding the finaliters' sphere of the local systems are called mansion worlds, but all fifty-six of the system transition abodes, in common with the higher spheres around the constellations and the universe headquarters, are called morontia worlds. These creations partake of the physical beauty and the morontia grandeur of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spheres.

48:1.3 (541.6) All of these worlds are architectural spheres, and they have just double the number of elements of the evolved planets. Such made-to-order worlds not only abound in the heavy metals and crystals, having one hundred physical elements, but likewise have exactly one hundred forms of a unique energy organization called *morontia material*.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le so to modify the revolutions of the primary units of matter and at the same time so to transform these associations of energy as to create this new substance.

48:1.4 (542.1) The early morontia life in the local systems is very much like that of your present material world, becoming less physical and more truly morontial on the constellation study worlds. And as you advance to the Salvington spheres, you increasingly attain spiritual levels.

48:1.5 (542.2)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able to effect a union of material and of spiritual energies, thereby organizing a morontia form of materialization which is receptive to the superimposition of a controlling spirit. When you traverse the morontia life of Nebadon, these same patient and skillful Morontia Power Supervisors will successively provide you with 570 morontia bodies, each one a phase of your progressive transformation. From the time of leaving the material worlds until you are constituted a first-

변화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 중 8번은 체계에서, 71번은 별자리에서, 그리고 491번은 구원자별의 구체들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다.

필사 육신의 기간에 신성한 영이 너희 속에 내주하며, 거의 분리된 존재—실체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중여된 영이 필사자에게 침투된 것이다. 그러나 모론시아 삶에서는 영이 너희 개인성의 실제적인 한 부분이 될 것이며, 너희가 570번에 걸친 진보적 변화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갈 때, 너희는 창조체 삶의 물질적인 신분으로부터 영적인 신분으로 상승한다.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들의 실존에 대해 그리고 모론시아 물질들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록하기를 “그들은 하늘에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영속하는 물질을 갖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론시아 물질들은 “지으신 이와 만드신 이가 하느님인, 그러한 기초를 가진 도시”안에 있는, 실제적이고 말 그대로이다. 그리고 경이로운 이들 구체 각각은 “더욱 좋은 나라, 그것이 즉, 천상의 것”이다.

제 2 장. 모론시아 힘 감독자

독특한 이 존재들은 영적 그리고 물리적인 또는 반(半) 물질적인 에너지의 실용적 조합에 해당하는 그 활동들에 대한 감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진보의 사명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들은 변환기 체험동안 필사자에게 사명활동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보하는 모론시아 창조체들을 위한 변환 환경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더 봉사한다.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모론시아 위상들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모론시아 힘의 통로들이다.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지역적 창조계들에서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 거의 표준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정 기능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의무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창조는 한 지역우주에서 첫 번째 맨션세계들 중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첫 번째 필사자 생존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들은 1,000개의 집단으로 창조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순환회로 규제자 400
2. 체계 조화-협동자 200
3. 행성 보호관리자 100
4. 병합된 통제자 100
5. 연락 안정자 100

stage spirit on Salvington, you will undergo just 570 separate and ascending morontia changes. Eight of these occur in the system, seventy-one in the constellation, and 491 during the sojourn on the spheres of Salvington.

48:1.6 (542.3) In the days of the mortal flesh the divine spirit indwells you, almost as a thing apart — in reality an invasion of man by the bestowed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But in the morontia life the spirit will become a real part of your personality, and as you successively pass through the 570 progressive transformations, you ascend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estate of creature life.

48:1.7 (542.4) Paul learned of the existence of the morontia worlds and of the reality of morontia materials, for he wrote, “They have in heaven a better and more enduring substance.” And these morontia materials are real, literal, even as in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And each of these marvelous spheres is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2. MORONTIA POWER SUPERVISORS

48:2.1 (542.5) These unique beings are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e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which represent a working combination of spiritual and physical or semimaterial energies. They are exclusively devoted to the ministry of morontia progression. Not that they so much minister to mortals during the transition experience, but they rather make possible the transition environment for the progressing morontia creatures. They are the channels of morontia power which sustain and energize the morontia phases of the transition worlds.

48:2.2 (542.6) Morontia Power Supervisors are the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fairly standard in design though differing slightly in nature in the various local creations. They are created for their specific function and require no training before entering upon their responsibilities.

48:2.3 (542.7) The creation of the first Morontia Power Supervisors is simultaneous with the arrival of the first mortal survivor on the shores of some one of the first mansion worlds in a local universe. They are created in groups of one thousand, classified as follows:

- 48:2.4 (542.8) 1. Circuit Regulators... 400
- 48:2.5 (542.9) 2. System Co-ordinators.. 200
- 48:2.6 (542.10) 3. Planetary Custodians.. 100
- 48:2.7 (543.1) 4. Combined Controllers.. 100
- 48:2.8 (543.2) 5. Liaison Stabilizers... 100

6. 선택 분류자⁵⁰7. 연관-동료 등록자⁵⁰

힘 감독자들은 항상 그들의 태어난 우주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의 공동 영 활동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도를 받지만 다른 면으로는 전적으로 자아-관리 집단이다. 그들은 지역 체계들의 첫 번째 맨션세계들 각각에 본부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물리통제자들과 세라핌천사들 둘 모두와 긴밀하게 관계적-연합되어 일하지만 에너지 현시활동과 영 적용에 관해서는 그들 자신만의 세계에서 기능한다.

또한 그들은 때로 진화 세계들에서 임시 임무의 사명활동자들로서 초(超)물질적 현상들과 관련되어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행성들에서 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우주의 보다 높은 훈련 세계들에서 활동하지도 않으며, 지역우주에서 모론시아 진보의 과도기 체제에 주로 헌신되어 있다.

1. 순환회로 규제자들. 이들은 물리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조화-협동시키는 독특한 존재들이고 모론시아 구체들의 분리된 통로들로 그 흐름을 제어하며, 이 순환회로들은 전적으로 행성적이며 하나의 세계에 제한된다. 모론시아 순환회로들은 과도기 세계에 있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 순환회로들 모두와 뚜렷하게 다르고, 그것들에 보충적이며, 심지어 사타니아에서의 맨션세계들과 같은 체계에 활력을 주는 데에도 이 규제자들이 수백만 명 필요하다.

순환회로 규제자들은 물질적 에너지들이 그들 연관-동료들의 통제와 규정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러한 변화들을 물질적 에너지 안에서 시작한다. 이들 존재들은 모론시아 힘의 발전기일 뿐 아니라 순환회로 규제자들이다. 발전기가 대기로 부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있는 이 모론시아 발전기들도 공간에 편재하는 에너지들을, 모론시아 감독자들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몸체들과 생명 활동들 속으로 직조하는 그 물질들로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2. 체계 조화-협동자들.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는 별개 계층의 모론시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간들이 이들 구체들을 그리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연속적인 과도기 구체에서, 필사자들은 상승하는 생존자의 진보하는 영성화에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변형되는 모론시아 실존에 속하는 식물생명과 다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세계의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개별화됨으로, 이 조화-협동자들은 그렇게 차이나는 힘 체계들을 모든 특별한 집단의 연관된 구체들을 위한 활동단위로 조화시키고 혼합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한 모론시아 세

48:2.9 (543.3) 6. Selective Assorters....50

48:2.10 (543.4) 7. Associate Registrars...50

48:2.11 (543.5) The power supervisors always serve in their native universe. They are directed exclusively by the joint spirit activity of the Universe Son and the Universe Spirit but are otherwise a wholly self-governing group. They maintain headquarters on each of the first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where they work in close association with both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seraphim but function in a world of their own as regards energy manifestation and spirit application.

48:2.12 (543.6) They also sometimes work in connection with supermaterial phenomena on the evolutionary worlds as ministers of temporary assignment. But they rarely serve on the inhabited planets; neither do they work on the higher training worlds of the superuniverse, being chiefly devoted to the transition regime of morontia progression in a local universe.

48:2.13 (543.7) 1. *Circuit Regulators*. These are the unique beings who co-ordinate physical and spiritual energy and regulate its flow into the segregated channels of the morontia spheres, and these circuits are exclusively planetary, limited to a single world. The morontia circuits are distinct from, and supplementary to, both physical and spiritual circuits on the transition worlds, and it requires millions of these regulators to energize even a system of mansion worlds like that of Satania.

48:2.14 (543.8) Circuit regulators initiate those changes in material energies which render them subject to the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ir associates. These beings are morontia power generators as well as circuit regulators. Much as a dynamo apparently generates electricity out of the atmosphere, so do these living morontia dynamos seem to transform the everywhere energies of space into those materials which the morontia supervisors weave into the bodies and life activities of the ascending mortals.

48:2.15 (543.9) 2. *System Co-ordinators*. Since each morontia world has a separate order of morontia energy,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humans to visualize these spheres. But on each successive transition sphere, mortals will find the plant life and everything else pertaining to the morontia existence progressively modified to correspond with the advancing spiritization of the ascending survivor. And since the energy system of each world is thus individualized, these co-ordinators operate to harmonize and blend such differing power systems into a working unit for the associated spheres of any particular group.

48:2.16 (543.10) Ascending mortals gradually progress

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전진할 때 물리적 상태로부터 영적 상태로 점진적으로 진보 한다; 그러므로 모론시아 구체들의 상승 비율과 모론시아 형태들의 상승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맨션세계 상승자들이 한 구체로부터 다른 구체로 나아갈 때, 그들은 진보된 세계의 체계 조화-협동자들의 접수자들에게,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 전달된다. 땅에서 기원된 필사자들의 첫 번째 영접 세계에 있는 부활실과 비슷한 과도기 방들이 있는 70개의 방사형 부속건물들의 중앙에 있는 독특한 그 성전들에서, 창조체 형태의 필연적인 변화들이 체계 조화-협동자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달성된다. 이 초기 모론시아-형태 변화들은 그것들이 성취되기까지 표준시간으로 약 7일이 소요된다.

3. 행성 보호관리자들. 맨션 구체들로부터 우주 본부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는, 70명의 수호자들의—모론시아 관련사들에 관한—보호 속에 있다. 그들은 최극의 모론시아 권한의 지역 행성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구체들에 도착한 모든 상승하는 창조체들에게 모론시아 형태들을 위한 물질을 수여하며 상승자가 다음 구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창조체 형태 안에서의 변화들을 허락한다. 맨션세계들을 지나간 후에, 너희는 의식을 잃는 일이 없이 모론시아 삶의 한 위상으로부터 다른 위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무의식은 초기의 변형들에서만 그리고 한 우주로부터 다른 우주로 그리고 하보나로부터 파라다이스로 옮기는 후기 변환들에서만 나타난다.

4. 병합된 통제자들. 매우 기계적인 이 존재들 중 하나는 모론시아 세계의 각각의 행정-관리적 단위 중심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병합된 통제자는 물리적, 영적, 그리고 모론시아적인 에너지들에 대해 예민하고 그것들과 함께 기능 한다; 두 명의 체계 조화-협동자들, 네 명의 순환회로 규제자들, 한 명의 행성 보호관리자, 한 명의 연락 안정자, 그리고 한 명의 연관-동료 등록자 또는 한 명의 선택 분류자가 항상 이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5. 연락 안정자들. 이들은 영역의 물리적 그리고 영 기체와 관계적-연합된 모론시아 에너지의 규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론시아 에너지가 모론시아 물질로 바뀌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존에서의 전체 모론시아 조직은 안정자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은 물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으로 에너지 회전 속도를 낮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존재들의 사명활동을 비유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벗어난다.

6. 선택 분류자들. 너희가 모론시아 세계의 한 등급 또는 위상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진보할 때, 너희는 재(再)-조율 또는 진보-동조를 받지 않으면

from the physical to the spiritual as they advance from one morontia world to another; hence the necessity for providing an ascending scale of morontia spheres and an ascending scale of morontia forms.

48:2.17 (543.11) When mansion world ascenders pass from one sphere to another, they are delivered by the transport seraphim to the receivers of the system co-ordinators on the advanced world. Here in those unique temples at the center of the seventy radiating wings wherein are the chambers of transition similar to the resurrection halls on the initial world of reception for earth-origin mortals, the necessary changes in creature form are skillfully effected by the system co-ordinators. These early morontia-form changes require about seven days of standard time for their accomplishment.

48:2.18 (544.1) 3. *Planetary Custodians.* Each morontia world, from the mansion spheres up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is in the custody — as regards morontia affairs — of seventy guardians. They constitute the local planetary council of supreme morontia authority. This council grants material for morontia forms to all ascending creatures who land on the spheres and authorizes those changes in creature form which make it possible for an ascender to proceed to the succeeding sphere. After the mansion worlds have been traversed, you will translate from one phase of morontia life to another without having to surrender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attends only the earlier metamorphoses and the later transitions from one universe to another and from Havona to Paradise.

48:2.19 (544.2) 4. *Combined Controllers.* One of these highly mechanical beings is always stationed at the center of each administrative unit of a morontia world. A combined controller is sensitive to, and functional with, physical, spiritual, and morontial energies; and with this being there are always associated two system co-ordinators, four circuit regulators, one planetary custodian, one liaison stabilizer, and either an associate registrar or a selective assorter.

48:2.20 (544.3) 5. *Liaison Stabilizers.* These are the regulators of the morontia energy in association with the physical and spirit forces of the realm. They make possible the conversion of morontia energy into morontia material. The whole morontia organization of existence is dependent on the stabilizers. They slow down the energy revolutions to that point where physicalization can occur. But I have no terms with which I can compare or illustrate the ministry of such beings. It is quite beyond human imagination.

48:2.21 (544.4) 6. *Selective Assorters.* As you progress from one class or phase of a morontia world to another, you must be re-keyed or

안되며, 너희를 모론시아 삶과의 점진적 동조성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택 분류자들의 임무이다.

생명과 물질의 기본 모론시아 형태들이 첫 번째 맨션세계로부터 마지막 우주 과도기 구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반면, 물질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적 진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연속적으로 진보하고 영성화하는 창조에 대한 너희의 적응은 이 선택적 재(再)-조율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성의 기능구조에의 그러한 조절은, 너희가 동일한 모론시아 형태를 유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와 대등하다.

너희는 이 검사관들의 시험에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고, 너희가 합당한 영적 성취를 이룩하자마자, 그들은 너희가 진보된 신분이 되었음을 기꺼이 보증할 것이다. 이 진보적 변화들은 모론시아 환경에 대한 변형된 반응의, 음식의 필요성과 수많은 다른 개인적 실천 관행들에 있어서의 변형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선택 분류자들은 또한 공부와 가르침 그리고 다른 계획들의 목적을 위한 모론시아 개인성들의 집단화에 있어서 큰 봉사를 한다. 그들은 일시적 관계적-연합에서 최고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자들을 자연스럽게 지적한다.

7. 연관-동료 등록자들. 모론시아 세계는 자체 기록자들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들에 토착적인 기록들과 기타 자료들에 대한 감독과 보호에 영 기록자들과 관계적-연합하여 봉사한다. 모론시아 기록들은 모든 개인성들의 계층에 가능하다.

모든 모론시아 과도기 영역들은 물질적 존재 그리고 영 존재들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모론시아 진보자들로서 너희는 물질적 세계 그리고 물질적 개인성들과 충분한 접촉을 이룰 수 있으며 반면, 너희는 영 존재들을 점점 더 식별하고 그들과 형제우애를 가지게 된다; 모론시아 체제를 떠나게 될 때까지, 너희는 단독 메신저들과 같은, 비교적 높은 유형들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제 3 장. 모론시아 동행자

맨션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의 이 무리는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10만 명의 집단들로 시대에 걸쳐 창조되었으며, 네바돈에는 현재 이 독특한 존재들이 700억 명 이상 존재한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구원자별에서 가까운 특별한 행성에서 멜키세덱에 의해 봉사를 위한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중앙 멜키세덱 학교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체계들의 가장 낮은 맨션

advance-tuned, and it is the task of the selective assorters to keep you in progressive synchrony with the morontia life.

48:2.22 (544.5) While the basic morontia forms of life and matter are identical from the first mansion world to the last universe transition sphere, there is a functional progression which gradually extends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Your adaptation to this basically uniform but successively advancing and spiritizing creation is effected by this selective re-keying. Such an adjustment in the mechanism of personality is tantamount to a new creation, notwithstanding that you retain the same morontia form.

48:2.23 (544.6) You may repeatedly subject yourself to the test of these examiners, and as soon as you register adequate spiritual achievement, they will gladly certify you for advanced standing. These progressive changes result in altered reactions to the morontia environment, such as modifications in food requirements and numerous other personal practices.

48:2.24 (544.7) The selective assorters are also of great service in the grouping of morontia personalities for purposes of study, teaching, and other projects. They naturally indicate those who will best function in temporary association.

48:2.25 (544.8) 7. Associate Registrars. The morontia world has its own recorders, who serve in association with the spirit recorders in the supervision and custody of the records and other data indigenous to the morontia creations. The morontia records are available to all orders of personalities.

48:2.26 (545.1) All morontia transition realms are accessible alike to material and spirit beings. As morontia progressors you will remain in full contact with the material world and with material personalities, while you will increasingly discern and fraternize with spirit beings; and by the time of departure from the morontia regime, you will have seen all orders of spirits with the exception of a few of the higher types, such as Solitary Messengers.

3. MORONTIA COMPANIONS

48:3.1 (545.2) These hosts of the mansion and morontia worlds are the offspring of a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They are created from age to age in groups of one hundred thousand, and in Nebadon there are at present over seventy billion of these unique beings.

48:3.2 (545.3) Morontia Companions are trained for service by the Melchizedeks on a special planet near Salvington; they do not pass through the central Melchizedek schools. In service they range

세계로부터 구원자별의 가장 높은 연구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봉사하지만,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그들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멜기세덱들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봉사한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한 지역우주 안에—지역체계들의 첫 번째 맨션세계들마다, 10,000개의 본부를 유지 한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아-관리 계층이며 일반적으로 지능적이고 충성스러운 존재들의 집단이지만; 때때로 어떤 불행한 천상의 반역과 연결되어 그들이 빛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익한 창조체들 중 수천 명이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의 기간에 유실되었다. 너희 지역체계는 현재 이 존재들의 배정된 숫자를 다 채우고 있으며, 루시퍼 반역으로 결손된 부분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보충되었다.

별개의 두 유형의 모론시아 동행자들이 존재하는데; 한 유형은 적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향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성적(性的) 창조체가 아니지만, 서로에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애정을 현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 (인간적) 감각에서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반면, 창조체 실존의 계층 면에서 보면 인간 종족들과 아주 가깝다. 세계들의 중도 창조체들은 너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케루빔, 그리고 그 다음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이다.

이 동행자들은 감동적으로 애정이 깊으며 매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독특한 개성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한 등급으로 인식하는 것을 배운 후에, 너희는 곧 그들의 개별성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필사자들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동시에 너희 각각은 별개의 식별 가능한 한 개성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어떤 개념의 일부는 지역체계에서의 그들의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으로써 추론될 수 있다:

1. 순례자 수호자들은 그들의 모론시아 진보자들과의 관계적-연합 속에서 특별한 임무들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 동행자들은 모론시아 생애 전체를 책임지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론시아 그리고 과도기 사명활동 전체의 활동을 조화-협동시키는 존재들이다.

2. 순례자 접수자와 자유 동료자들. 이들은 맨션세계들에 새로 도착하는 자들의 사회적 동행자들이다. 너희가 최초의 맨션세계에서 시간의 첫 번째 변천 수면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너희가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모론시아 삶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체험을 하였을 때, 그들 중 하나가 틀림없이 너희를 곁에서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깨어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환영을 받은 때로부터 첫 번째 단계 영으로서 지역우주를 떠나게 되는 날까지 이 모론시아 동행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from the lowest mansion worlds of the systems to the highest study spheres of Salvington, but they are seldom encountered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serve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Sons of God and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Melchizedeks.

48:3.3 (545.4) The Morontia Companions maintain ten thousand headquarters in a local universe — on each of the first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s. They are almost wholly a self-governing order and are, in general, an intelligent and loyal group of beings; but every now and then, in connection with certain unfortunate celestial upheavals, they have been known to go astray. Thousands of these useful creatures were lost during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Your local system now has its full quota of these beings, the loss of the Lucifer rebellion having only recently been made up.

48:3.4 (545.5) There are two distinct types of Morontia Companions; one type is aggressive, the other retiring, but otherwise they are equal in status. They are not sex creatures, but they manifest a touchingly beautiful affection for one another. And while they are hardly companionate in the material (human) sense, they are very close of kin to the human races in the order of creature existence. The midway creatures of the worlds are your nearest of kin; then come the morontia cherubim, and after them the Morontia Companions.

48:3.5 (545.6) These companions are touchingly affectionate and charmingly social beings. They possess distinct personalities, and when you meet them on the mansion worlds, after learning to recognize them as a class, you will soon discern their individuality. Mortals all resemble one another; at the same time each of you possesses a distinct and recognizable personality.

48:3.6 (545.7) Something of an idea of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se Morontia Companions may be derived from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of their activities in a local system:

48:3.7 (545.8) 1. *Pilgrim Guardians* are not assigned to specific duties in their association with the morontia progressors. These companions are responsible for the whole of the morontia career and are therefore the co-ordinators of the work of all other morontia and transition ministers.

48:3.8 (546.1) 2. *Pilgrim Receivers and Free Associators*. These are the social companions of the new arrivals on the mansion worlds. One of them will certainly be on hand to welcome you when you awaken on the initial mansion world from the first transit sleep of time, when you experience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th of the flesh into the morontia life. And from the time you are thus formally welcomed on awakening to that day when you leave the local universe as a first-

있다.

동행자들은 개별존재들에게 영구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맨션세계들 또는 보다 높은 세계들 중 하나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연속되는 여러 경우들 각각마다 하나의 다른 동행자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동행자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갈 수도 있다. 그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가능한 동행자들의 공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3. 천상의 방문자 영접자. 친절한 이 창조체들은 과도기 세계들에 우연히 머물 수 있는 학생 방문자들 또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초(超)인간 집단들을 대접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체험적으로 달성하였던 모든 영역을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학생 방문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모든 행성들, 심지어는 고립되어 있는 행성들도 방문할 수 있다.

4. 조화-협동자와 연락지도자. 이 동행자들은 모론시아 교감의 촉진에 그리고 혼란의 예방에 전념되어 있다. 그들은 사회적 행위성과 모론시아 진보의 강사들이며, 상승하는 필사자들 중에서 학습시간들과 다른 집단 활동들을 후원한다. 그들은 자기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프로그램들을 꾸미기 위하여 천상의 거장과 복귀 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광대한 지역들을 유지하고 있다. 너희가 진보할 때, 너희는 이 동행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될 것이며, 너희는 두 집단들과 점점 더 굉장히 정답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적극적인 형태의 동행자와 연관될 것인가 아니면 내향적인 유형과 연관될 것인가는 우연의 문제이다.

5. 통역자와 번역자. 초기의 맨션계 삶 동안 너희는 통역자와 번역자에게 종종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역우주의 모든 언어들을 알고 말한다; 그들은 영역들에서 어학에 능통한 자들이다.

너희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와 같이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 훌륭한 존재들이 너희의 언어 교사가 될 것이다. 맨션세계에서의 첫 번째 학습은 사타니아의 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네바돈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이 말들을 습득하는 동안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너희의 유능한 통역자 그리고 인내심 있는 번역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들 세계들 어느 곳의 방문자들도 결코 마주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론시아 동행자들 중 어느 하나가 통역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6. 소풍 전환 감독자들. 이 동행자들은 본부 구체에 이르는 그리고 과도기 문화의 주변 세계들에 이르는 보다 긴 여행들에서 너희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훈련과 문화의 체계 세계들에 관한 그러한 모든 개별 그리고 집단 여행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독한다.

stage spirit, these Morontia Companions are ever with you.

48:3.9 (546.1) Companions are not assigned permanently to individuals. An ascending mortal on one of the mansion or higher worlds might have a different companion on each of several successive occasions and again might go for long periods without one. It would all depend on the requirements and also on the supply of companions available.

48:3.10 (546.1) 3. *Hosts to Celestial Visitors.* These gracious creatures are dedicated to the entertainment of the superhuman groups of student visitors and other celestials who may chance to sojourn on the transition worlds. You will have ample opportunity to visit within any realm you have experientially attained. Student visitors are allowed on all inhabited planets, even those in isolation.

48:3.11 (546.1) 4. *Co-ordinators and Liaison Directors.* These companions are dedicated to the facilitation of morontia intercourse and to the prevention of confusion. They are the instructors of social conduct and morontia progress, sponsoring classes and other group activities among the ascending mortals. They maintain extensive areas wherein they assemble their pupils and from time to time make requisition on the celestial artisans and the reversion directors for the embellishment of their programs. As you progress, you will come in intimate contact with these companions, and you will grow exceedingly fond of both groups. It is a matter of chance as to whether you will be associated with an aggressive or a retiring type of companion.

48:3.12 (546.1) 5.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During the early mansonia career you will have frequent recourse to the interpreters and the translators. They know and speak all the tongues of a local universe; they are the linguists of the realms.

48:3.13 (546.1) You will not acquire new languages automatically; you will learn a language over there much as you do down here, and these brilliant beings will be your language teachers. The first study on the mansion worlds will be the tongue of Satania and then the language of Nebadon. And while you are mastering these new tongues, the Morontia Companions will be your efficient interpreters and patient translators. You will never encounter a visitor on any of these worlds but that some one of the Morontia Companions will be able to officiate as interpreter.

48:3.14 (546.1) 6. *Excursion and Reversion Supervisors.* These companions will accompany you on the longer trips to the headquarters sphere and to the surrounding worlds of transition culture. They plan, conduct, and supervise all such individual and group tours about the system worlds

7. 지역과 건물 보호관리자들.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 구조물들조차도 너희가 맨션계 삶에서 진보함에 따라 점점 더 완전하게 되고 장엄하게 된다. 개별존재들로서 그리고 집단들로서, 너희는 다른 맨션세계들에 너희를 머물게 하는 본부로 배정된 거주지들에서 특정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이들 구체의 활동들 대부분은 다양하게 지정된 원들과 정사각형들 그리고 삼각형들의 열린 울타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맨션세계 구조물들 중 다수는 지붕이 없으며, 장엄한 구조물과 멋진 장식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고안건축의 세계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후를 비롯하여 다른 물리적 환경들은 지붕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한다.

상승하는 삶의 과도기 위상들에 대한 이 보호관리자들은 모론시아 관련사들의 관리에서 최극이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최극존재의 사실화에 매달려 있으며, 그들은 항상 모론시아 동행자들로 남아 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체계들과 우주들이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하게 되면, 맨션세계들은 모론시아 훈련의 과도기 구체들로서 기능하는 것을 점점 더 멈추게 된다. 최종자가 그들의 새로운 훈련 체계를 더욱 더 세우고, 그것은 대우주의 현재 차원으로부터 미래의 외계 우주들의 차원으로 조화우주 의식작용을 전환시키도록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최종자와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현재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영역들에서 점점 더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가 머무는 기간이 길든지 아니면 짧든지 간에, 맨션세계들에서 누리는 너희의 즐거움에 이 존재들이 아마 많이 기여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자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들을 계속 즐기게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너희의 생존 체험에 근본이 되는 어느 부분도 아니다. 너희는 그것들 없이도 구원자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크게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지역우주에서 갖는 너희 상승 생애의 개인성 호사품들이다.

제 4 장. 복귀 지도자

기쁜 환희와 상응하는-미소는 음악만큼 보편적이다. 환희와 웃음에 상응한 모론시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상승하는 삶은 일과 놀이-임무로부터의 해방-사이에서 거의 똑같이 나뉘어 있다.

천상의 이완-휴식과 초인간적 유머는 그것들의 인간적 동의어와 매우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 둘 모두의 한 형태에 실제적으로 빠져 있다; 이

of training and culture.

48.3.15 (546.1) *7. Area and Building Custodians.* Even the material and morontia structures increase in perfection and grandeur as you advance in the mansonia career. As individuals and as groups you are permitted to make certain changes in the abodes assigned as headquarters for your sojourn on the different mansion worlds. Many of the activities of these spheres take place in the open enclosures of the variously designated circles, squares, and triangles. The majority of the mansion world structures are roofless, being enclosures of magnificent construction and exquisite embellishment. The climatic and other physical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architectural worlds make roofs wholly unnecessary.

48.3.16 (547.1) These custodians of the transition phases of ascendant life are supreme in the management of morontia affairs. They were created for this work, and pending the f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lways will they remain Morontia Companions; never do they perform other duties.

48.3.17 (547.2) As systems and universe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mansion worlds increasingly cease to function as transition spheres of morontia training. More and more the finaliters institute their new training regime, which appears to be designed to translate the cosmic consciousness from the present level of the grand universe to that of the future outer universes. The Morontia Companions are destined to function increasingly in association with the finaliters and in numerous other realms not at present revealed on Urantia.

48.3.18 (547.3) You can forecast that these beings are probably going to contribute much to your enjoyment of the mansion worlds, whether your sojourn is to be long or short. And you will continue to enjoy them all the way up to Salvington. They are not, technically, essential to any part of your survival experience. You could reach Salvington without them, but you would greatly miss them. They are the personality luxury of your ascending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4. THE REVERSION DIRECTORS

48.4.1 (547.4) Joyful mirth and the smile-equivalent are as universal as music. There is a morontial and a spiritual equivalent of mirth and laughter. The ascendant life is about equally divided between work and play — freedom from assignment.

48.4.2 (547.5) Celestial relaxation and superhuman humor are quite different from their human analogues, but we all actually indulge in a form of

상적인 유머가 유란시아에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들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성취한다. 모론시아 동행자들은 능숙한 놀이 후원자들이며, 그들은 복귀 지도자들에 의해 가장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만약에 그들이 유란시아에 있는 더욱 높은 익살꾼들과 비슷하였다면, 변화와 이완-휴식에 대한 이 지도자들, 모론시아 그리고 영 영역들의 고양된 유머의 이 봉사자들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려는 노력에서 그것이 지극히 거칠고 어느 정도 불행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복귀 지도자들의 기능을 너희가 아마도 잘 납득하였을 것이다.

영 유머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먼저 너희에게 그것이 무엇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하겠다. 영 농담은 연약하고 잘못된 불행들에 대한 강조의 티가 결코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영광과 정의(正義)에 대한 모독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유머는 깊은 이해에서의 일반적인 세 가지 차원을 포용 한다:

1. 회상하는 농담들. 어떤 사람의 투쟁, 갈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그리고 종종 바보스럽고 어린이 같은 갈망으로 인한 체험 안에 있는 과거의 에피소드들을 기억함으로써 나오는 우스갯 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상의 유머는 기억 재료를 위하여 과거에서 끌어오는 깊게-자리하고 오래 머무르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며, 그 자료로 즐겁게 운치를 내거나 아니면 현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한다.

2. 시사 유머.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심각한 관심을 가지게 한 많은 것에 대한 무의미함, 우리들의 심각한 개인적 갈망 대부분이 사소함을 발견할 때의 기쁨. 우리가 미래의 확실성을 위하여 현재의 갈망들을 최고로 감소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유머의 이 위상을 가장 좋아한다.

3. 예언적 기쁨. 이 유머의 위상을 상상하는 것이 필사자들에게는 아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영들과 모론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필사자들에게도—“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작용함”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독특한 만족감을 얻는다. 천상의 유머의 이러한 양상은 우리 상급자들의 애정 있는 보살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최극 지도자들의 신성한 안정성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영영들의 복귀 지도자들은 다양한 계층들의 지능존재들의 높은 유머를 묘사하는 일에만 배타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또한 기분전환, 영적 레크리에이션과 모론시아 오락에 대한 지도에도 종사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그들은 천상의 거장과 긴밀하게 협동한다.

복귀 지도자 그들은 창조된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하보나 원주민들로부터 아래로는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 그리고 시간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을 거쳐 진화 세계들로부터의 모론시아 진보자들

both; and they really accomplish for us, in our state, just about what ideal humor is able to do for you on Urantia. The Morontia Companions are skillful play sponsors, and they are most ably supported by the reversion directors.

48.4.3 (547.6) You would probably best understand the work of the reversion directors if they were likened to the higher types of humorists on Urantia, though that would be an exceedingly crude and somewhat unfortunate way in which to try to convey an idea of the function of these directors of change and relaxation, these ministers of the exalted humor of the morontia and spirit realms.

48.4.4 (547.7) In discussing spirit humor, first let me tell you what it is *not*. Spirit jest is never tinged with the accentuation of the misfortunes of the weak and erring. Neither is it ever blasphemous of the righteousness and glory of divinity. Our humor embraces three general levels of appreciation:

48.4.5 (547.8) 1. *Reminiscent jests*. Quips growing out of the memories of past episodes in one's experience of combat, struggle, and sometimes fearfulness, and oftentimes foolish and childish anxiety. To us, this phase of humor derives from the deep-seated and abiding ability to draw upon the past for memory material with which pleasantly to flavor and otherwise lighten the heavy loads of the present.

48.4.6 (548.1) 2. *Current humor*. The senselessness of much that so often causes us serious concern, the joy at discovering the unimportance of much of our serious personal anxiety. We are most appreciative of this phase of humor when we are best able to discount the anxieties of the present in favor of the certainties of the future.

48.4.7 (548.2) 3. *Prophetic joy*. It will perhaps be difficult for mortals to envisage this phase of humor, but we do get a peculiar satisfaction out of the assurance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 for spirits and morontians as well as for mortals. This aspect of celestial humor grows out of our faith in the loving overcare of our superiors and in the divine stability of our Supreme Directors.

48.4.8 (548.3) But the reversion directors of the realms are not concerned exclusively with depicting the high humor of the various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they are also occupied with the leadership of diversion, spiritual recreation and morontia entertainment. And in this connection they have the hearty co-operation of the celestial artisans.

48.4.9 (548.4) The reversion directors themselves are not a created group; they are a recruited corps embracing beings ranging from the Havona natives down through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and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to the

에 이르기까지의 존재들을 포함하는 모집된 단체이다. 모두가 지원자들인데, 생각 변화와 마음 휴식의 성취에서 자기 동료들을 돕는 일에 애쓰며, 그러한 태도들이 고갈된 에너지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달성의 노력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보충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날들과 시대들의 범규들을 다시 지키며 사는 데 있어서 수궁이 되는 기쁨이 있다. 종족 또는 계층의 초기 체험들은 편안하게 추억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거장들이—그들은 존재의 덜 체험된 상태 또는 발달에 있어서의 이전 상태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가도록 돕고 있다—복귀 지도자들과 불리는 정확한 이유이다.

선천적인 창조자들, 따라서 자동으로 자아-회복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반응에서 항상 그리고 영원하게 철저히 사무적인 힘 중심과 물리통제자와 같은, 어떤 높은 특별한 유형의 창조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종류의 복귀를 즐긴다. 기능적 임무의 긴장감에서의 이 주기적 해제는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세계들에서의 삶의 정해진 한 부분이지만 파라다이스 섬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 거주지의 토착적인 존재들은 고갈의 여지가 없고, 그러므로 재(再)-에너지화에 관련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완전의 그러한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진화적 체험들에 대한 그러한 복귀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실존 단계들을 통하여 또는 우리 계층들의 진보적 차원들을 통하여 올라왔으며, 우리들이 초기에 체험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상쾌한 일이고 어느 정도 즐거운 일이다. 어느 존재의 계층에 있어서 오래된 그리고 마음의 기억 속에 가물거리는 것을 깊이 사색하는 데에는 편안함 있다. 미래는 갈등과 발전을 의미 한다; 그것은 일과 노력과 성취가 있다는 증거이지만; 어떤 것들에 대한 과거의 위치는 이미 정복되었고 성취되었다; 과거의 깊은 사색은 흥겨움에 가까운 마음의 모른시아 상태와 영 환희를 유발시키는 이완-휴식과 그러한 태평스러운 복습을 허락한다.

심지어는 필사자의 유머도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현재 발달 상태 바로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들을 묘사할 때, 또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정된 열등자들과 연관되는 체험들로, 누군가 가정된 우월자들이 떨어져 피해자가 되는 것을 묘사할 때 가장 풍성하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너희는 너희의 유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저속하고 고약한 것들 대부분을 허용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희는 비교적 유사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를 받을 만하다. 너희 종족들 중 일부는 그것의 풍부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 세상 생애

morontia progressor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All are volunteers, giving themselves to the work of assisting their fellows in the achievement of thought change and mind rest, for such attitudes are most helpful in recuperating depleted energies.

48.4.10 (548.5) When partially exhausted by the efforts of attainment, and while awaiting the reception of new energy charges, there is agreeable pleasure in living over again the enactments of other days and ages.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race or the order are restful to reminisce.* And that is exactly why these artists are called reversion directors — they assist in reverting the memory to a former state of development or to a less experienced status of being.

48.4.11 (548.6) All beings enjoy this sort of reversion except those who are inherent Creators, hence automatic self-rejuvenators, and certain highly specialized types of creatures, such as the power cent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who are always and eternally thoroughly businesslike in all their reactions. These periodic releases from the tension of functional duty are a regular part of life on all world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but not on the Isle of Paradise. Beings indigenous to the central abode are incapable of depletion and are not, therefore, subject to re-energizing. And with such beings of eternal Paradise perfection there can be no such reversion to evolutionary experiences.

48.4.12 (548.7) Most of us have come up through lower stages of existence or through progressive levels of our orders, and it is refreshing and in a measure amusing to look back upon certain episodes of our early experience. There is a restfulness in the contemplation of that which is old to one's order, and which lingers as a memory possession of the mind. The future signifies struggle and advancement; it bespeaks work, effort, and achievement; but the past savors of things already mastered and achieved; contemplation of the past permits of relaxation and such a carefree review as to provoke spirit mirth and a morontia state of mind verging on merriment.

48.4.13 (548.8) Even mortal humor becomes most hearty when it depicts episodes affecting those just a little beneath one's present developmental state, or when it portrays one's supposed superiors falling victim to the experiences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supposed inferiors. You of Urantia have allowed much that is at once vulgar and unkind to become confused with your humor, but on the whole, you are to be congratulated on a comparatively keen sense of humor. Some of your races have a rich vein of it and are greatly helped in their earthly careers

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분명히 너희는 유머의 기법에 있어서 많은 것을 너희 아담의-유산으로부터 받아들었는데, 음악이나 예술보다도 훨씬 더 그러하다.

사타니아 전체는, 유희의 기간 동안,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실존의 낮은 단계의 기억들을 새롭게 소생시킬 때, 유란시아로부터 온 복귀 지도자 무리단의 유쾌한 유머에 의해 교화된다. 우리는 천상의 유머 감각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임무에 임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그것은 어느 존재의 자아-중요성 자각의 과도한 발달을 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 계층의 심각한 임무로부터 휴식을 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너희가 “재미있게 논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유머의 고삐를 자유롭게 풀어놓지는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중요성을 배가하도록 유혹 받을 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조물주들의 위대함과 장엄함의 무한성에 대하여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아-영광은 터무니없이 어처구니없는 것이 될 것이며, 오히려 유머에 가까울 것이다. 유머의 기능들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심각성을 줄여주도록 우리 모두를 돕는 것이다. 유머는 자기 고양(高揚)에 대한 신성한 해독제이다.

유머의 이완-휴식과 기분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위를 향한 자신들의 갈등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감과 관련되어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그 계층들에게 가장 크다. 삶의 양 극단들은 익살스러운 기분전환을 거의 필요하지 않다. 원시인들은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으며, 파라다이스 완전의 존재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보나의 무리는 본성적으로 지극히 행복한 개인성들의 유쾌하고 상쾌한 모임이다. 파라다이스에서는 경배의 본질특성이 복귀 활동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완전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하는 그들 가운데에는, 복귀 지도자들의 사명활동을 위한 넓은 장소가 있다.

더욱 높은 필사 종족들일수록, 긴장감이 더 크고 유머에 대한 능력이 더 크며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그러하다. 영 세계에서 그 반대이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복귀 체험들에 대한 기분전환이 점점 덜 필요하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로부터 세라핌천사 무리로 영 일생의 단계를 낮출 때, 환희의 임무와 명량함의 사명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된다. 이전의 체험들의 지능적 상태에 대한 주기적 복귀의 원기 회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인간 종족들의 더 높은 유형, 모론시아인, 천사, 그리고 물질아들들이며, 비슷한 유형의 모든 개인성들도 그러하다.

유머는 발전적 진보와 고귀한 성취를 위한 격렬한 갈등과 관계적-연합하여 지속적이고 심각한 자아-응시의 단조로움으로 기인된 과도한 압박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야만 한다. 또한 유머는 사실의 또는 진리의

thereby. Apparently you received much in the way of humor from your Adamic inheritance, much more than was secured of either music or art.

48:4.14 (549.1) All Satania, during times of play, those times when its inhabitants refreshingly resurrect the memories of a lower stage of existence, is edified by the pleasant humor of a corps of reversion directors from Urantia. The sense of celestial humor we have with us always, even when engaged in the most difficult of assignments. It helps to avoid an overdevelopment of the notion of one's self-importance. But we do not give rein to it freely, as you might say, "have fun," except when we are in recess from the serious assignments of our respective orders.

48:4.15 (549.2) When we are tempted to magnify our self-importance, if we stop to contemplate the infinity of the greatness and grandeur of our Makers, our own self-glorification becomes sublimely ridiculous, even verging on the humorous. One of the functions of humor is to help all of us take ourselves less seriously. *Humor is the divine antidote for exaltation of ego.*

48:4.16 (549.3) The need for the relaxation and diversion of humor is greatest in those orders of ascendant beings who are subjected to sustained stress in their upward struggles. The two extremes of life have little need for humorous diversions. Primitive men have no capacity therefor, and beings of Paradise perfection have no need thereof. The hosts of Havona are naturally a joyous and exhilarating assemblage of supremely happy personalities. On Paradise the quality of worship obviates the necessity for reversion activities. But among those who start their careers far below the goal of Paradise perfection, there is a large place for the ministry of the reversion directors.

48:4.17 (549.4) The higher the mortal species, the greater the stress and the greater the capacity for humor as well as the necessity for it. In the spirit world the opposite is true: The higher we ascend, the less the need for the diversions of reversion experiences. But proceeding down the scale of spirit life from Paradise to the seraphic host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mission of mirth and the ministry of merriment. Those beings who most need the refreshment of periodic reversion to the intellectual status of previous experiences are the higher types of the human species, the morontians, angels, and the Material Sons, together with all similar types of personality.

48:4.18 (549.5) Humor should function as an automatic safety valve to prevent the building up of excessive pressures due to the monotony of sustained and serious self-contemplation in association with the intense struggle for

예기치 않은 영향의, 굳어버리고 완고한 사실과 유연하고 항상-살아있는 진리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직면할 것에 결코 확신할 수 없는, 필사자 개인성은, 상황의 예기치 못하는 본성이 사실이 되는지 또는 진실이 되는지를, 유머를 통하여—요점을 보고 그리고 통찰을 성취함으로써—신속하게 파악한다.

유란시아의 유머는 매우 조잡하고 가장 비예술적인 반면, 하나의 건강 보험으로서 그리고 감정적 압박감에 대한 해방자로서 귀중한 목적을 봉사하며, 그리하여 해로운 신경 긴장 상태와 과도하게 심각한 자아-응시를 예방한다. 유머와 놀이—이완-휴식—은 앞으로 나가는 노력의 반응이 아니다; 그것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의 반향, 과거에 대한 회상이다. 심지어는 현재의 너희가 그리하듯 유란시아에서도, 너희가 더 새롭고 더 높은 지적 수고들의 노력을 잠시 동안 중지하고서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좀 더 단순한 일들로 되돌아갈 때, 너희는 항상 그런 것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유란시아인의 유희적 삶의 원칙은 철학적으로 건전하다, 그리고 하보나 순환회로들을 거쳐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해변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상승하는 삶에 두루 계속하여 적용된다. 상승하는 존재들로서 너희는 모든 이전의 더 낮은 실존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 기억들이 없다면 현재의 유머, 필사자 웃음 또는 모론시아 환희에 대한 기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기분전환과 오락을 위해 기본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 체험에 대한 회상(回想)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의 긴 모론시아와, 그 다음의 점증되는 영적 생애에 두루 너희의 이 땅에서의 유머와 상응한 천상의 것들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영원한 부분이 되는 하느님의 그 부분(조절자)은, 시간과 공간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즐거운 표현, 영적인 웃음마저도 신성의 조화 음(音)을 바칠 것이다.

제 5 장. 맨션세계 선생

맨션세계 선생들은 버림받은 그러나 영화롭게 된 케루빔과 사노빔의 무리단이다. 시간의 순례자가 공간의 시험세계로부터 모론시아 훈련의 맨션 그리고 그에 연관된 세계들로 나아갈 때, 그의 개인적 또는 집단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가 그와 동행한다. 필사 실존의 세계에서는 세라핌천사는 케루빔과 사노빔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지만; 그녀의 필사자 피보호자가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상승 생애를 시작할 때, 물질 이후 또는 모론시아 삶이 시작할 때, 함께 있는 세라핌천사는 그녀의 이전(以前) 부관들, 케루빔과 사노빔의 봉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developmental progress and noble achievement. Humor also functions to lessen the shock of the unexpected impact of fact or of truth, rigid unyielding fact and flexible ever-living truth. The mortal personality, never sure as to which will next be encountered, through humor swiftly grasps — sees the point and achieves insight — the unexpected nature of the situation be it fact or be it truth.

48:4.19 (549.6) While the humor of Urantia is exceedingly crude and most inartistic, it does serve a valuable purpose both as a health insurance and as a liberator of emotional pressure, thus preventing injurious nervous tension and overserious self-contemplation. Humor and play — relaxation — are never reactions of progressive exertion; always are they the echoes of a backward glance, a reminiscence of the past. Even on Urantia and as you now are, you always find it rejuvenating when for a short time you can suspend the exertions of the newer and higher intellectual efforts and revert to the more simple engagements of your ancestors.

48:4.20 (550.1) The principles of Urantian play life are philosophically sound and continue to apply on up through your ascending life, through the circuits of Havona to the eternal shores of Paradise. As ascendant beings you are in possession of personal memories of all former and lower existences, and without such identity memories of the past there would be no basis for the humor of the present, either mortal laughter or morontia mirth. It is this recalling of past experience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present diversion and amusement. And so you will enjoy the celestial equivalents of your earthly humor all the way up through your long morontia, and then increasingly spiritual, careers. And that part of God (the Adjuster) which becomes an eternal part of the personality of an ascendant mortal contributes the overtones of divinity to the joyous expressions, even spiritual laughter,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ime and space.

5. THE MANSION WORLD TEACHERS

48:5.1 (550.2) The Mansion World Teachers are a corps of deserted but glorified cherubim and sanobim. When a pilgrim of time advances from a trial world of space to the mansion and associated worlds of morontia training, he is accompanied by his personal or group seraphim, the guardian of destiny. In the worlds of mortal existence the seraphim is ably assisted by cherubim and sanobim; but when her mortal ward is delivered from the bonds of the flesh and starts out on the ascendant career, when the postmaterial or morontia life begins, the attending seraphim has no further need of the ministrations of her former

봉사하는 세라핌천사의 분리된 이 보좌관들은 종종 우주 본부로 소환되며, 그곳에서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친밀한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맨션세계 선생들로서 체계 훈련 구체들로 나아간다. 이 선생들은 물질세계들을 종종 방문하며 가장 낮은 맨션세계들로부터 우주 본부와 연결된 가장 높은 교육 구체에 이르기까지 기능한다. 그들 자신의 동의에 따라, 그들은 봉사하는 세라핌천사와 함께 그들의 이전(以前) 연관하던 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사타니아에는 이들 선생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라핌천사가 조절자-융합 필사자와 함께 안쪽으로 진행할 때, 케루빔과 사노빔은 둘 모두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계 선생들은, 대부분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론시아 동행자들에 의해 감독을 받지만, 개별존재들로서 그리고 선생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강사로 기능할 수 있는 학교들 또는 구체들의 실질적 우두머리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진보된 이 케루빔은 그들이 세라핌천사에게 배정되었을 때 활동했던 것처럼 대개 쌍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론시아 유형의 실존과 매우 가까우며, 그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선천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선생들이며 맨션세계 그리고 모론시아 교육 체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모론시아 삶의 학교들에서는 이 선생들이 개별, 집단, 학급, 그리고 대중 교육에 참여한다. 맨션세계들에서는 그러한 학교들이 각각 100개의 구분을 갖는 세 개의 일반적 집단들, 사고의 학교, 느낌의 학교, 행동의 학교들로 조직 된다: 너희가 별자리에 도달할 때, 거기에는 윤리 학교와 관리-행정 학교 그리고 사회적 조절의 학교가 덧붙여질 것이다.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너희는 철학과 신성 그리고 순수 영성의 학교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구에서 배울 수가 있었던, 그러나 배우지 못한 그것들은 이 신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선생들의 지도 아래에서 반드시 획득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왕도(王道), 지름길, 또는 쉬운 길은 없다. 경로의 개별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너희는 다른 구체로 진행하기 전에 한 구체의 가르침을 숙달하며; 적어도 이것은 너희가 태어난 세계를 일단 떠난 후에 이것은 사실이다.

모론시아 생애의 목적들 중 하나는, 꾸물거림, 얼버무림, 불성실, 문제 기피, 부당성, 그리고 편안함의 추구하고 같은 동물적 흔적의 특색들을 살아남는 필사자들로부터 영구히 근절하는 것이다.

lieutenants, the cherubim and sanobim.

48:5.2 (550.3) These deserted assistants of the ministering seraphim are often summoned to universe headquarters, where they pass into the intimate embrac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then go forth to the system training spheres as Mansion World Teachers. These teachers often visit the material worlds and function from the lowest mansion worlds on up to the highest of the educational spheres connected with the universe headquarters. Upon their own motion they may return to their former associative work with the ministering seraphim.

48:5.3 (550.4) There are billions upon billions of these teachers in Satania, and their numbers constantly increase because, in the majority of instances, when a seraphim proceeds inward with an Adjuster-fused mortal, both a cherubim and a sanobim are left behind.

48:5.4 (550.5) Mansion World Teachers, like most of the other instructors, are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They are generally supervised by the Morontia Companions, but as individuals and as teachers they are supervised by the acting heads of the schools or spheres wherein they may be functioning as instructors.

48:5.5 (550.6) These advanced cherubim usually work in pairs as they did when attached to the seraphim. They are by nature very near the morontia type of existence, and they are inherently sympathetic teachers of the ascending mortals and most efficiently conduct the program of the mansion world and morontia educational system.

48:5.6 (551.1) In the schools of the morontia life these teachers engage in individual, group, class, and mass teaching. On the mansion worlds such schools are organized in three general groups of one hundred divisions each: the schools of thinking, the schools of feeling, and the schools of doing. When you reach the constellation, there are added the schools of ethics, the schools of administration, and the schools of social adjustment.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you will enter the schools of philosophy, divinity, and pure spirituality.

48:5.7 (551.2) Those things which you might have learned on earth, but which you failed to learn, must be acquired under the tutelage of these faithful and patient teachers. There are no royal roads, short cuts, or easy paths to Paradise. Irrespective of the individual variations of the route, you master the lessons of one sphere before you proceed to another; at least this is true after you once leave the world of your nativity.

48:5.8 (551.3) One of the purposes of the morontia career is to effect the permanent eradication from the mortal survivors of such animal vestigial traits as procrastination, equivocation, insincerity,

맨션계 삶은 일찍부터 젊은 모론시아 학생들에게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피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친다. 육신에서의 삶 이후에는 시간이나, 상황에서 발뻠할 수 있거나 또는 즐겁지 않은 의무들을 피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다.

체제하는 구체들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맨션세계 선생들은, 체험과 함께, 체계와 별자리의 교육 구체들을 거쳐 구원자별의 훈련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전진한다.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그들이 안겨진 후 또는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단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맨션세계에 체류하는 그들의 학생들에게 출생지가 되는 세계들에서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로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일을 위해 이미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진보하는 필사자들과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었다. 그들은 실천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선생들, 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 강사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상승 계획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진보 생애의 첫 위상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체험되어 있다.

이들 선생들 중 오래된 자들 대부분,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다시 안기며, 두 번째의 이 포옹으로부터 이 케루빔과 사노빔은 세라핌천사의 지위로 창발한다.

제 6 장. 모론시아 세계 세라핌천사-과도기 사명 활동자

행성 조력자들로부터 최극 세라핌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천사들이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사명활동하는 반면,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이 활동들에 더욱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이 천사들은 세라핌천사 봉사자들 중 여섯 번째 계층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은 육신으로의 일시적 삶으로부터 일곱 맨션세계들에서의 모론시아 실존의 초기 단계들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그리고 필사 창조체들의 변환을 촉진시키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너희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삶이 도덕적 지위의 창조체 마음에 영 조절자가 내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혼의 개념에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위에서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필사자 혼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구체들의 더 높은 차원들에 대한 인식까지 초(超)필사자 기능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다.

아무튼 너희는 너희가 맨션세계들에 도달하기 전에는 과도기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되었음으로,

problem avoidance, unfairness, and ease seeking. The mansonia life early teaches the young morontia pupils that postponement is in no sense avoidance. After the life in the flesh, time is no longer available as a technique of dodging situations or of circumventing disagreeable obligations.

48:5.9 (551.4) Beginning service on the lowest of the tarrying spheres, the Mansion World Teachers advance, with experience, through the educational spheres of the system and the constellation to the training worlds of Salvington. They are subjected to no special discipline either before or after their embrace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ey have already been trained for their work while serving as seraphic associates on the worlds native to their pupils of mansion world sojourn. They have had actual experience with these advancing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They are practical and sympathetic teachers, wise and understanding instructors, able and efficient guides. They are entirely familiar with the ascendant plans and thoroughly experienced in the initial phases of the progression career.

48:5.10 (551.5) Many of the older of these teachers, those who have long served on the worlds of the Salvington circuit, are re-embraced by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from this second embrace these cherubim and sanobim emerge with the status of seraphim.

6. MORONTIA WORLD SERAPHIM — TRANSITION MINISTERS

48:6.1 (551.6) While all orders of angels, from the planetary helpers to the supreme seraphim, minister on the morontia worlds, the transition ministers are more exclusively assigned to these activities. These angels are of the sixth order of seraphic servers, and their ministry is devoted to facilitating the transit of material and mortal creatures from the temporal life in the flesh on into the early stages of morontia existence on the seven mansion worlds.

48:6.2 (551.7) You should understand that the morontia life of an ascending mortal is really initiated on the inhabited worlds at the conception of the soul, at that moment when the creature mind of moral status is indwelt by the spirit Adjuster. And from that moment on, the mortal soul has potential capacity for supermortal function, even for recognition on the higher levels of the morontia spheres of the local universe.

48:6.3 (552.1) You will not, however, be conscious of the ministry of the transition seraphim until you attain the mansion worlds, where they labor untiringly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mortal

그들의 필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 한다:

1. 세라핌천사 전도자들. 너희가 맨션세계들에서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너희는 체계의 기록들에서 진화하는 영들로 분류된다. 정말로 너희는 아직 실체 안에서 영들이 아니지만, 너희는 더 이상 필사자 또는 물질적 존재도 아니며; 너희는 영-이전(以前) 생애를 시작하였고 모론시아 삶에 정식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되었다.

맨션세계들에서 세라핌천사 전도자들은 에덴시아와 구원자별과 유버사 그리고 하보나에 이르는 선택 경로들 중에서 너희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에 똑같이 제안할만한 경로들이 여러 개 있다면, 이것들이 너희 앞에 놓여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때 이 세라핌천사는 각각의 상승하는 혼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그 경로에 관하여 예루셈에 있는 24명의 충고자들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너희 미래 경로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너희의 미래 영 달성을 위해 가장 알맞도록 과도기 사명활동자들과 그들의 상급자들이 현명하게 결정한 것의 한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영 세계는, 너희가 선택하는 경로가 너희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너희 동료들에게 해롭지 않다면 너희의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 위에서 지배된다.

이 세라핌천사 전도자들은 영원한 진보의 복음, 완전성 달성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에 전념되어 있다.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은 선(善)함이 보존되고 그리고 지배한다는 위대한 법령을 선포한다: 선한 어떤 행동도 전적으로 손실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훼방을 받았겠지만 전적으로 소멸된 적은 없으며, 그 동기의 신성에 비례하여 영원히 효력이 있다.

심지어 유란시아에서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의 선행”에 대한 설교에 집착하는 진리와 정의(正義)의 인간 선생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조언한다. 그리하여 이 진리들은 너희 세계에 이렇게 선언되었다:

하느님들은 나를 돌보시는 이들이시니,

나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나란히 서서 영속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길과 영광스러운 새로움에 나를 인도합니다.

나는 이 신성한 현존 안에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불안의 골짜기로 내려가거나 의심의 세계들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외로움 속에서 일하거나 나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행할지라도,

내가 빛의 합창 속에서 승리하거나 구체들의

pupils, being assigned for service in the following seven divisions:

48:6.4 (552.2) 1. *Seraphic Evangels*. The moment you consciosize on the mansion worlds, you are classified as evolving spirits in the records of the system. True, you are not yet spirits in reality, but you are no longer mortal or material beings; you have embarked upon the prespirit career and have been duly admitted to the morontia life.

48:6.5 (552.3) On the mansion worlds the seraphic evangels will help you to choose wisely among the optional routes to Edentia, Salvington, Uversa, and Havona. If there are a number of equally advisable routes, these will be put before you, and you will be permitted to select the one that most appeals to you. These seraphim then make recommendations to the four and twenty advisers on Jerusem concerning that course which would be most advantageous for each ascending soul.

48:6.6 (552.4) You are not given unrestricted choice as to your future course; but you may choose within the limits of that which the transition ministers and their superiors wisely determine to be most suitable for your future spirit attainment. The spirit world is govern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your freewill choice provided the course you may choose is not detrimental to you or injurious to your fellows.

48:6.7 (552.5) These seraphic evangels are dedica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eternal progression, the triumph of perfection attainment. On the mansion worlds they proclaim the great law of the conservation and dominance of goodness: No act of good is ever wholly lost; it may be long thwarted but never wholly annulled, and it is eternally potent in proportion to the divinity of its motivation.

48:6.8 (552.6) Even on Urantia they counsel the human teacher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o adhere to the preaching of “the goodness of God, which leads to repentance,” to proclaim “the love of God, which casts out all fear.” Even so have these truths been declared on your world:

48:6.9 (552.7) The Gods are my caretakers; I shall not stray;

48:6.10 (552.8) Side by side they lead me in the beautiful paths and glorious refreshing of life everlasting.

48:6.11 (552.9) I shall not, in this Divine Presence, want for food nor thirst for water.

48:6.12 (552.10) Though I go down into the valley of uncertainty or ascend up into the worlds of doubt,

48:6.13 (552.11) Though I move in loneliness or with the fellows of my kind,

48:6.14 (552.12) Though I triumph in the choirs of light

외로운 곳에서 넘어지더라도,

당신의 선한 영이 나를 돌보실 것이며, 당신의 영광의 천사가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암흑과 죽음 그 자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더라도,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때가 이르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벽 위의 높은 곳에 당신과 함께 앉기까지, 나를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밤 사이에 목동에게 속삭여 준 이야기이다. 그는 이것을 한 마디 한 마디 새길 수는 없었지만, 자기 기억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오늘날 기록된 그것처럼 많은 부분을 전해주었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전체 체계뿐만 아니라 개별 상승자들에게도 완전성 달성의 복음에 관한 전도자들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지금도 사타니아의 젊은 체계에서 그들의 가르침들과 계획들이 미래 시대들을 위한 준비물을 제공하는데, 그때 맨션세계들은 필사자 상승자들에게 높은 곳에 있는 구체들에 이르는 디딤돌로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2. 종족 통역자들. 필사 존재들의 모든 종족들은 똑같지 않다. 정말로, 주어진 세계의 다양한 종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본성들과 경향들에 통용되는 하나의 행성 원형들이 거기에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인종 유형들도 거기에 있으며, 매우 명확한 사회적 성향들이 인간 존재들의 서로 다른 이 기본 유형들의 후손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 세계들에서는 세라핌천사 종족 통역자들이 이 종족들의 잡다한 관점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종족 위원들의 노력을 더욱 증진하며, 그들은 맨션세계들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이 차이점들이 어느 정도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유란시아와 같은 혼동의 행성에서는, 뛰어난 이들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하늘의 유능한 사회학자들이며 현명한 인종적 충고자들이다.

너희는 “하늘”이라는 말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을 숙고해야만 한다. 너희 선지자들 대부분에 의해 착상하였던 하늘은 지역체계의 맨션세계들 중 첫 번째였다. 사도가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었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의 조절자가 분리되고 그리고 이 유별난 상태에서 일곱 맨션세계 중에서 세 번째까지 구체적으로 투사된 체험을 말한 것이었다. 너희 현자들 중 일부는 더 큰 하늘, “하늘들의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았었는데, 이 중에서 7중 맨션세계 체험은 첫 번째에 불과 하였다; 두 번째는 예루셈이었고; 세 번째는 에덴시아와 그 위성들이었다; 네 번째는 구원자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구체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유버사; 여섯 번째는 하보나;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파라다이스이었다.

or falter in the solitary places of the spheres,

48:6.15 (552.13) Your good spirit shall minister to me, and your glorious angel will comfort me.

48:6.16 (552.14) Though I descend into the depths of darkness and death itself,

48:6.17 (552.15) I shall not doubt you nor fear you,

48:6.18 (552.16) For I know that in the fullness of time and the glory of your name

48:6.19 (552.17) You will raise me up to sit with you on the battlements on high.

48:6.20 (553.1) That is the story whispered in the night season to the shepherd boy. He could not retain it word for word, but to the best of his memory he gave it much as it is recorded today.

48:6.21 (553.2) These seraphim are also the evangels of the gospel of perfection attainment for the whole system as well as for the individual ascender. Even now in the young system of Satania their teachings and plans encompass provisions for the future ages when the mansion worlds will no longer serve the mortal ascenders as steppingstones to the spheres on high.

48:6.22 (553.3) 2. *Racial Interpreters.* All races of mortal beings are not alike. True, there is a planetary pattern running through th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natures and tendencies of the various races of a given world; but there are also distinct racial types, and very definite social tendencies characterize the offspring of these different basic types of human beings. On the worlds of time the seraphic racial interpreters further the efforts of the race commissioners to harmonize the varied viewpoints of the races, and they continue to function on the mansion worlds, where these same differences tend to persist in a measure. On a confused planet, such as Urantia, these brilliant beings have hardly had a fair opportunity to function, but they are the skillful sociologists and the wise ethnic advisers of the first heaven.

48:6.23 (553.4) You should consider the statement about “heaven” and the “heaven of heavens.” The heaven conceived by most of your prophets was the first of the mansion worlds of the local system. When the apostle spoke of being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 he referred to that experience in which his Adjuster was detached during sleep and in this unusual state made a projection to the third of the seven mansion worlds. Some of your wise men saw the vision of the greater heaven, “the heaven of heavens,” of which the sevenfold mansion world experience was but the first; the second being Jerusalem; the third, Edentia and its satellites; the fourth, Salvington and the surrounding educational spheres; the fifth, Uversa;

3. 마음 계획자들. 이들 세라핌천사들은 모론시아 존재들을 효력 있게 무리를 짓는 일과 맨션세계들에서 그들이 협동하도록 조직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 그들은 첫 번째 하늘의 심리학자들이다.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의 이 특정한 분야에 속한 대부분은 그 전에 시간의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로서 체험을 가졌었으나, 그들의 피보호자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맨션세계에서 개인성 구현에 실패하였거나 아니면 영 융합의 기법으로 생존된 체험을 가지고 있다.

마음 계획자들의 임무는 맨션세계에 두루 파도기 안에 있는 조절자 혼들의 본성, 체험 그리고 지위를 연구하는 일, 그리고 배치와 진급을 위하여 그들을 무리로 묶는 일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마음 계획자들은 기획하거나 조종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맨션세계 학생들의 무지나 한계를 장점으로 삼는다. 그들은 온통 공평하고 뛰어난게 공정하다. 그들은 너희의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의지를 존중 한다; 너희를 독립된 의지 존재들로 간주하고, 너희의 빠른 발달과 진보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 너희는 참된 친구이자 납득하는 조언자, “다른 이들이 너희를 보듯이 너희 자신을 보도록” 그리고 “천사들이 너희를 알듯이 너희 자신을 알도록” 너희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천사들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도, 이 세라핌천사들이 영속하는 진리를 가르친다: 만일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희를 잘 봉사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를 항상 잘 봉사하는 나사렛 예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4. 모론시아 조언자들. 이 사명활동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들로부터 생존된 필사자들, 체계 본부의 보다 높은 학교들로 옮겨가는 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언하도록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생명 차원들의 체험적 통일에 대한 통찰력을 찾는 이들, 의미들의 집대성활동과 가치들의 통일을 시도하는 그들의 선생들이다. 이것이 필사자 삶에서의 철학, 모론시아 구체들에서의 모타의 기능이다.

모타는 우월한 철학보다 더욱 우월한 것이다. 두개의 눈이 하나의 눈과 비교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철학에 비교 된다; 의미들과 가치들에 대한 입체 효과를 갖는다. 물질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의 눈을 가지고—평면으로—있는 그대로 우주를 본다. 맨션세계 학생들은—물질적 삶에 대한 인식 위에 모론시아 삶에 대한 인식을 첨가시킴으로써, 조화우주의 원근법의 깊이를 달성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그들의 세라핌천사 조언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이 물질적 그리고 모론시아 관점들을 참된 초점에 모아지게 하며, 그들은 맨션세계 학생들과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매우 끈기 있게 가르친다. 세라핌천사들의 최극 계층의 가르치는 조언자들 대부분은 시간의 필사자들의 새롭게 해방된 혼들에 대한 충고자들로서 그들의

the sixth, Havona; and the seventh, Paradise.

48:6.24 (553.5) 3. *Mind Planners*. These seraphim are devoted to the effective grouping of morontia beings and to organizing their teamwork on the mansion worlds. They are the psychologists of the first heaven. The majority of this particular division of seraphic ministers have had previous experience as guardian angels to the children of time, but their wards, for some reason, failed to personalize on the mansion worlds or else survived by the technique of Spirit fusion.

48:6.25 (553.6) It is the task of the mind planners to study the nature, experience, and status of the Adjuster souls in transit through the mansion worlds and to facilitate their grouping for assignment and advancement. But these mind planners do not scheme, manipulate, or otherwise take advantage of the ignorance or other limitations of mansion world students. They are wholly fair and eminently just. They respect your newborn morontia will; they regard you as independent volitional beings, and they seek to encourage your speedy development and advancement. Here you are face to face with true friends and understanding counselors, angels who are really able to help you “to see yourself as others see you” and “to know yourself as angels know you.”

48:6.26 (553.7) Even on Urantia, these seraphim teach the everlasting truth: If your own mind does not serve you well, you can exchange it for the mind of Jesus of Nazareth, who always serves you well.

48:6.27 (554.1) 4. *Morontia Counselors*. These ministers receive their name because they are assigned to teach, direct, and counsel the surviving mortals from the worlds of human origin, souls in transit to the higher schools of the system headquarters. They are the teachers of those who seek insight into the experiential unity of divergent life levels, those who are attempting the integration of meanings and the unification of values. This is the function of philosophy in mortal life, of mota on the morontia spheres.

48:6.28 (554.2) Mota is more than a superior philosophy; it is to philosophy as two eyes are to one; it has a stereoscopic effect on meanings and values. Material man sees the universe, as it were, with but one eye — flat. Mansion world students achieve cosmic perspective — depth — by superimposing the perceptions of the morontia life upon the perceptions of the physical life. And they are enabled to bring these material and morontial viewpoints into true focus largely through the untiring ministry of their seraphic counselors, who so patiently teach the mansion world students and the morontia progressors. Many of the teaching counselors of the supreme order of seraphim began their careers as advisers of the newly

생애를 시작했었다.

5. 기술자들. 이들은 새로운 상승자들로 하여금 모론시아 구체들의 새롭고도 비교적 낯선 환경에 그들 자신을 적응시키도록 돕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과도기 세계들에서의 삶은 물리적 그리고 모론시아 차원 둘 모두의 에너지들과 물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적 실체들과 실제적인 접촉을 이루게 한다. 상승자들은 모든 새로운 모론시아 차원에 순응해야만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세라핌천사 기술자들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는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 그리고 주(主)물리통제자들과 함께 연락자로서 활동하며 과도기 구체들에서 활용되는 그 에너지들의 본성에 관하여 상승 순례자들의 강사들로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그들은 비상시의 공간 횡단자로서 봉사하며, 또한 수많은 또 다른 정규 임무와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

6. 기록자-교사들. 이 세라핌천사들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선의 활동행위들, 사람들과 천사들의 관계들, 더 낮은 우주 영역들의 모론시아 활동행위들에 대한 기록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사실 기록의 능률적이고 효력적인 기법에 관하여 강사들로서 봉사한다. 지능적 조립과 관련 자료의 조화-협동에는 예술적 효과가 존재하며, 이 예술은 천상의 거장과 조화-협동함으로써 강화되며, 심지어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기록하는 세라핌천사들과 그렇게 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세라핌천사 계층의 기록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의 사실들에 대한 이 천사 보호관리자들은 모든 사실 추구자들의 이상적인 강사들이다.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사타니아 그리고 그것에 속한 619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역사에 매우 익숙하게 될 것이며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세라핌천사 기록자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이 천사들은 모두 시간의 사실들과 영원의 진리들에 대한 가장 낮은 보호관리자로부터 가장 높은 보호관리자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기록자들의 고리에 속해 있다. 언젠가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을 찾도록 가르치고, 혼은 물론 너희 마음을 확대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지금도 너희는 너희 가슴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메마른 모래들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교훈을 배우게 되면 형식은 가치가 없게 된다. 어떤 병아리도 껍질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껍질도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시로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것에 대한 체험적 정복에 필수가 되는 저들 서서히 창발하는 진리들에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이상들을 가질 때, 그것들을 제거하지 말라; 그들로 하여금 키우도록 내버려두라. 그리고 너희가 성인들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너희도 역시 어린아이들처럼 기도하

liberated souls of the mortals of time.

48:6.29 (554.3) 5. *Technicians*. These are the seraphim who help new ascenders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and comparatively strange environment of the morontia spheres. Life on the transition worlds entails real contact with the energies and materials of both the physical and morontia levels and to a certain extent with spiritual realities. Ascenders must acclimatize to every new morontia level, and in all of this they are greatly helped by the seraphic technicians. These seraphim act as liaisons with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and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function extensively as instructors of the ascending pilgrims concerning the nature of those energies which are utilized on the transition spheres. They serve as emergency space traversers and perform numerous other regular and special duties.

48:6.30 (554.4) 6. *Recorder-Teachers*. These seraphim are the recorders of the borderland transactions of the spiritual and the physical, of the relationships of men and angels, of the morontia transactions of the lower universe realms. They also serve as instructors regarding the efficient and effective techniques of fact recording. There is an artistry in the intelligent assembly and co-ordination of related data, and this art is heighten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elestial artisans, and even the ascending mortals become thus affiliated with the recording seraphim.

48:6.31 (554.5) The recorders of all the seraphic orders devote a certain amount of time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orontia progressors. These angelic custodians of the facts of time are the ideal instructors of all fact seekers. Before leaving Jerusem, you will become quite familiar with the history of Satania and its 619 inhabited worlds, and much of this story will be imparted by the seraphic recorders.

48:6.32 (554.6) These angels are all in the chain of recorders extending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custodians of the facts of time and the truths of eternity. Some day they will teach you to seek truth as well as fact, to expand your soul as well as your mind. Even now you should learn to water the garden of your heart as well as to seek for the dry sands of knowledge. Forms are valueless when lessons are learned. No chick may be had without the shell, and no shell is of any worth after the chick is hatched. But sometimes error is so great that its rectification by revelation would be fatal to those slowly emerging truths which are essential to its experiential overthrow. When children have their ideals, do not dislodge them; let them grow. And while you are learning to think as men, you should also be learning to pray as children.

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법이란 삶 그 자체이며 그것의 행위성에 대한 규칙들이 아니다. 악이란, 삶, 그것이 법이니, 그 삶에 따라붙는 행위성의 규칙들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허위는 서술의 기법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왜곡과 같은 고의적인 어떤 것이다. 옛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그림들의 창조, 자손들의 생활 안에서 부모로서의 삶의 재현—이것들은 진리의 예술적 승리이다. 털끝만한 변화의 기색, 참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궁리, 원칙인 그것의 작은 뒤틀림이나 왜곡—이것들이 거짓을 이룬다. 그러나 사실화된 진리에 대한 무속적 숭배물, 화석화된 진리, 소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석고상들은 사람을 차가운 사실의 순환계 안에 눈먼 채로 머물게 한다. 사람은 사실에 관한 기술적으로 옳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영속적으로 그릇될 수 있다.

7. 사명활동 예비자들. 과도기 세라핌천사들의 모든 계층의 큰 무리단이 첫 번째 맨션세계에 있다. 운명 수호자들 다음으로, 이 과도기 사명활동자들은 인간들에게 세라핌천사의 모든 계층들을 가장 가까이 접근시키며, 너희의 여가 시간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임무가 없을 때에는 종종 자원자로서 사명활동한다. 많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혼은, 세라핌천사 예비자들의 자원 봉사자들의 개인적인 친구관계를 통하여, 봉사-하려는-의지의 신성한 불꽃에 의해 처음으로 불이 붙었다.

그들로부터 너희는 압력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확실성을 개발하도록 배울 것이다; 신실하고 진지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쾌활해 지는 것을 배울 것이다; 불평 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마주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실패한다면, 너희는 새로 시도하기 위해 굶하지 않고 일어설 것인가? 만일 너희가 성공한다면, 물질적 타성의 족쇄를 부수려는 긴 투쟁, 영 실존의 자유를 달성하려는 긴 투쟁에 두루, 모든 노력에서 잘-균형 잡힌 자세—안정되고 영성화된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필사자들이 그러하듯 마찬가지로, 이들 천사들도 많은 실망들에 대한 아버지로 있어 왔고, 그리하여 그들은 언젠가는 너희를 가장 실망시키는 실망들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왔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언젠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에서의 열매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씨앗의 죽음,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희망들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에는, 다른 개인성들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적 계획을 줄임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너희가 너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온 때에 있는 너희의 몫을 너희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슬픔과 실망을 두루 거치면서 고통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그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함으로써 너희의 짐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

48:6.33 (555.1) Law is life itself and not the rules of its conduct. Evil is a transgression of law, not a violation of the rules of conduct pertaining to life, which is the law. Falsehood is not a matter of narration technique but something premeditated as a perversion of truth. The creation of new pictures out of old facts, the restatement of parental life in the lives of offspring — these are the artistic triumphs of truth. The shadow of a hair's turning, premeditated for an untrue purpose, the slightest twisting or perversion of that which is principle — these constitute falseness. But the fetish of factualized truth, fossilized truth, the iron band of so-called unchanging truth, holds one blindly in a closed circle of cold fact. One can be technically right as to fact and everlastingly wrong in the truth.

48:6.34 (555.2) 7. *Ministering Reserves.* A large corps of all orders of the transition seraphim is held on the first mansion world. Next to the destiny guardians, these transition ministers draw the nearest to humans of all orders of seraphim, and many of your leisure moments will be spent with them. Angels take delight in service and, when unassigned, often minister as volunteers. The soul of many an ascending mortal has for the first time been kindled by the divine fire of the will-to-service through personal friendship with the volunteer servers of the seraphic reserves.

48:6.35 (555.3) From them you will learn to let pressure develop stability and certainty; to be faithful and earnest and, withal, cheerful; to accept challenges without complaint and to face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without fear. They will ask: If you fail, will you rise indomitably to try anew? If you succeed, will you maintain a well-balanced poise — a stabilized and spiritualized attitude — throughout every effort in the long struggle to break the fetters of material inertia, to attain the freedom of spirit existence?

48:6.36 (555.4) Even as mortals, so have these angels been father to many disappointments, and they will point out that sometimes your most disappointing disappointments have become your greatest blessings. Sometimes the planting of a seed necessitates its death, the death of your fondest hopes, before it can be reborn to bear the fruits of new life and new opportunity. And from them you will learn to suffer less through sorrow and disappointment, first, by making fewer personal plans concerning other personalities, and then, by accepting your lot when you have faithfully performed your duty.

48:6.37 (555.5) You will learn that you increase your burdens and de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 by taking yourself too seriously. Nothing can take

다. 그 어떤 것도 너희 지위 구체—이 세상이거나 또는 다음 세상이거나—에서의 일보다 우선으로 취급할 수 없다. 더욱 높은 다음 구체를 위해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그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일의 중요함과 동등한 것은 없다. 그러나 비록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자아는 아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나는 자기 존엄성의 마모와 그리고 찢김에 대하여 에너지를 쓰며 잃어버리게 되므로, 그래서 일을 행하기 위한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일-중요함이 아니라, 자아-중요함이 미성숙한 창조체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소진하는 것은 자아 요소이지, 성취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자아-중요함으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중요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자신에게서 떠나서 나가면 여러 일들을 마치 하나처럼 쉽게 행할 수 있다. 다양성은 여유로운 평안을 준다; 단조로움이 마모시키고 소진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매일 매일이 비슷하다—올바른 생명이든지 아니면 남은 선택인 죽음이든지 이다.

제 7 장. 모론시아 모타

모론시아 모타의 더 낮은 국면들은 인간 철학의 더 높은 차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는 병렬식 기법에 의해 덜 발전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실천 관행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줄은 모타 의미들 중에서 더 단순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다른 줄에서는 필사 철학과 비슷한 서술들로 되어 있다.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사타니아의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이 교습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학습의 모타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모타의 의의(意義)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그들의 초기의 노력에서 이 모론시아 강사가 이용하고 있었던 이 새로운 맨션세계 체류자들을 돕도록 계획된 예증 자료인 인간 철학의 28개 서술들을 기록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인간 철학의 이 예증들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화된 솜씨를 들어내는 것이 영적 능력의 소유를 가르키지 않는다. 영리함이 참된 성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2.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당당히 사는 개인들은 거의 없다. 이유 없는 두려움이야말로 진화하는 필사자 혼 위에 실천 관행이 된 지능적 속임수의 주인이다.

3. 선천적인 수용력은 초과될 수 없다; 한 되 는 결코 한 말을 담을 수 없다. 영 개념이 물질적인 기억 틀 속으로 기계적으로 들어가 기세를 끼치게 할 수가 없다.

4. 본성과 은혜의 병합된 사명활동들에 의해 확정된, 마치 개인성 신용한도의 총액과 같은, 그

precedence over the work of your status sphere — this world or the next. Very important is the work of preparation for the next higher sphere, but nothing equals the importance of the work of the world in which you are actually living. But though the *work* is important, the *self* is not. When you feel important, you lose energy to the wear and tear of ego dignity so that there is little energy left to do the work. Self-importance, not work-importance, exhausts immature creatures; it is the self element that exhausts, not the effort to achieve. You can do important work if you do not become self-important; you can do several things as easily as one if you leave yourself out. Variety is restful; monotony is what wears and exhausts. Day after day is alike — just life or the alternative of death.

7. MORONTIA MOTA

48.7.1 (556.1) The lower planes of morontia mota join directly with the higher levels of human philosophy. On the first mansion world it is the practice to teach the less advanced students by the parallel technique; that is, in one column are presented the more simple concepts of mota meanings, and in the opposite column citation is made of analogous statements of mortal philosophy.

48.7.2 (556.2) Not long since, while executing an assignment on the first mansion world of Satania, I had occasion to observe this method of teaching; and though I may not undertake to present the mota content of the lesson, I am permitted to record the twenty-eight statements of human philosophy which this morontia instructor was utilizing as illustrative material designed to assist these new mansion world sojourners in their early efforts to grasp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mota. These illustrations of human philosophy were:

48.7.3 (556.3) 1. A display of specialized skill does not signify possession of spiritual capacity. Cleverness is not a substitute for true character.

48.7.4 (556.4) 2. Few persons live up to the faith which they really have. Unreasoned fear is a master intellectual fraud practiced upon the evolving mortal soul.

48.7.5 (556.5) 3. Inherent capacities cannot be exceeded; a pint can never hold a quart. The spirit concept cannot be mechanically forced into the material memory mold.

48.7.6 (556.6) 4. Few mortals ever dare to draw anything like the sum of personality credits

러한 어떤 것을 과감히 꺼내 써보려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난해진 혼들은 진실로 부유한데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다.

5. 어려움은 평범함에 도전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지고자들의 참된 자녀들을 기운 돋게 할 뿐이다.

6. 남용함이 없이 특권을 즐기는 것, 방종함이 없이 해방을 가지는 것, 힘을 소유하면서도 자아-웅대함에 사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것이 높은 문명의 표식들이다.

7. 맹목적이고 우연한 현상들은 우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은 자신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행하기를 거부하는 더 낮은 존재를 돕지도 않는다.

8. 노력이 항상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지능적 노력 없이는 행복이 없다.

9. 행동은 힘을 성취한다; 온건함은 마침내 매력을 일으킨다.

10. 정의(正義)는 진리의 조화로운 화음을 내며, 멜로디는 심지어 무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주 전체에 진동한다.

11. 약한 자는 결단에 탐닉하지만 강한 자는 행동한다. 일생은 단지 하루의 일이다—그것을 잘 하라. 행동은 우리들의 것이다; 귀결은 하느님의 것이다.

12. 조화우주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전혀 고통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필사자들은 오직 시련을 체험함으로써 지혜를 배운다.

13. 별들은 불이 밝혀진 그리고 황홀한 산꼭대기에서가 아니라 체험적 심연의 고독한 고립에서 가장 잘 식별된다.

14. 진리에 대하여 너희 연관-동료들의 욕망을 자극하라; 요청을 받았을 때에만 충고하라.

15. 허식은 지혜롭게 보이려는 무지한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노력이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메마른 혼의 시도이다.

16. 너희는 영적인 진리를 느낌으로 느끼듯이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며, 많은 진리들은 역경을 당해보지 않고는 실제로 느낄 수 없다.

17. 야망은 그것이 충분히 사회화되기 전에는 위험하다. 너희는 너희 행동이 너희를 그것에 대해 가치 있게 만들기 전에는 어떤 덕목도 참되게 소유할 수 없다.

18. 성급함은 일종의 영 독약이다; 분노는 벌집에 던져진 돌과 같다.

19. 근심을 버려야만 한다. 가장 참기 어려운 실망은 그것들이 결코 오지 않는 것이다.

established by the combined ministries of nature and grace. The majority of impoverished souls are truly rich, but they refuse to believe it.

48:7.7 (556.7) 5. Difficulties may challenge mediocrity and defeat the fearful, but they only stimulate the true children of the Most Highs.

48:7.8 (556.8) 6. To enjoy privilege without abuse, to have liberty without license, to possess power and steadfastly refuse to use it for self-aggrandizement — these are the marks of high civilization.

48:7.9 (556.9) 7. Blind and unforeseen accidents do not occur in the cosmos. Neither do the celestial beings assist the lower being who refuses to act upon his light of truth.

48:7.10 (556.10) 8. Effort does not always produce joy, but there is no happiness without intelligent effort.

48:7.11 (556.11) 9. Action achieves strength; moderation eventuates in charm.

48:7.12 (556.12) 10. Righteousness strikes the harmony chords of truth, and the melody vibrates throughout the cosmos, even to the recognition of the Infinite.

48:7.13 (556.13) 11. The weak indulge in resolutions, but the strong act. Life is but a day's work — do it well. The act is ours; the consequences God's.

48:7.14 (556.14) 12. The greatest affliction of the cosmos is never to have been afflicted. Mortals only learn wisdom by experiencing tribulation.

48:7.15 (556.15) 13. Stars are best discerned from the lonely isolation of experiential depths, not from the illuminated and ecstatic mountain tops.

48:7.16 (556.16) 14. Whet the appetites of your associates for truth; give advice only when it is asked for.

48:7.17 (557.1) 15. Affectation is the ridiculous effort of the ignorant to appear wise, the attempt of the barren soul to appear rich.

48:7.18 (557.2) 16. You cannot perceive spiritual truth until you feelingly experience it, and many truths are not really felt except in adversity.

48:7.19 (557.3) 17. Ambition is dangerous until it is fully socialized. You have not truly acquired any virtue until your acts make you worthy of it.

48:7.20 (557.4) 18. Impatience is a spirit poison; anger is like a stone hurled into a hornet's nest.

48:7.21 (557.5) 19. Anxiety must be abandoned. The disappointments hardest to bear are those which never come.

20. 일상적 실존의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이야기 속에서 시인만이 시를 식별할 수 있다.

21. 모든 예술의 높은 임무는, 그것의 환상에 의해서, 더 높은 우주 실체를 예시하는 것이고, 시간에서의 감정을 영원에서의 생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22. 진화하는 혼은 그것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행하려고 분투하는 것에 의해 신성하게 된다.

23. 죽음은 지적 소유에 또는 영적 자질에 아무 것도 더해주지 않지만, 체험적 지위에 생존에 대한 의식을 더해준다.

24. 영원의 운명은 하루하루 삶의 성취에 의해 순간마다 결정된다. 오늘의 행동들은 내일의 운명이다.

25. 위대함은 힘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을 지혜롭고 신성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26. 지식은 오직 공유하는 것에 의해 소유된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 보호되고 사랑에 의해 사회화된다.

27. 진보는 개별존재성의 발전을 요구 한다; 진부함은 표준화되어서 그 안에서 영속하기를 추구한다.

28. 어떤 명제에서도 그것의 논쟁적인 방어는 담겨있는 진리에 반비례한다.

그러한 것은 첫 번째 맨션세계의 초보자들의 작업인 반면 이후 세계들에 있는 더욱 진보된 학생들은 조화우주 통찰력과 모론시아 모타를 터득한다.

제 8 장. 모론시아 진보자들

초우주 생애에서 영 지위의 달성을 향해 맨션 세계들로부터 졸업하는 순간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라고 불려진다. 이 놀라운 경계지대 삶을 통과하는 너희의 여행은 잊을 수 없는 체험, 매력 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상승자들이 시간의 목표—파라다이스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를 성취함에 따라 이루는, 결국 생겨나는 창조체 완전의 달성과 영 생명에 이르는 진화적인 입구이다.

이 모든 모론시아와 그리고 뒤이어지는 필사자 진보에서의 영 기획, 상승하는 창조체들을 위한 정교한 이 우주 훈련 학교에는 확실하고도 신성한 목적이 있다. 대우주의 운영과 관리-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숙달하도록 등급적으로 배열된 기회를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창조자들의 계획이며, 이 긴 훈련 과정은 생존된 필사자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상승

48:7.22 (557.6) 20. Only a poet can discern poetry in the commonplace prose of routine existence.

48:7.23 (557.7) 21. The high mission of any art is, by its illusions, to foreshadow a higher universe reality, to crystallize the emotions of time into the thought of eternity.

48:7.24 (557.8) 22. The evolving soul is not made divine by what it does, but by what it strives to do.

48:7.25 (557.9) 23. Death added nothing to the intellectual possession or to the spiritual endowment, but it did add to the experiential status the consciousness of *survival*.

48:7.26 (557.10) 24. The destiny of eternity is determined moment by moment by the achievements of the day by day living. The acts of today are the destiny of tomorrow.

48:7.27 (557.11) 25. Greatness lies not so much in possessing strength as in making a wise and divine use of such strength.

48:7.28 (557.12) 26. Knowledge is possessed only by sharing; it is safeguarded by wisdom and socialized by love.

48:7.29 (557.13) 27. Progress demands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mediocrity seeks perpetuation in standardization.

48:7.30 (557.14) 28. The argumentative defense of any proposition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ruth contained.

48:7.31 (557.15) Such is the work of the beginners on the first mansion world while the more advanced pupils on the later worlds are mastering the higher levels of cosmic insight and morontia mota.

8. THE MORONTIA PROGRESSORS

48:8.1 (557.16) From the time of graduation from the mansion worlds to the attainment of spirit status in the superuniverse career, ascending mortals are denominated morontia progressors. Your passage through this wonderful borderland life will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a charming memory. It is the evolutionary portal to spirit life and the eventual attainment of creature perfection by which ascenders achieve the goal of time — the finding of God on Paradise.

48:8.2 (557.17) There is a definite and divine purpose in all this morontia and subsequent spiri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this elaborate universe training school for ascending creatures. It is the design of the Creators to afford the creatures of time a graduated opportunity to master the details of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grand universe, and this long course of training is best

의 모든 과정에 실제적인 참여로 가장 잘 수행된다.

필사자-생존 계획은 실천적이고 유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겨우 끝없는 축복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생존되는, 단지 그러한 것을 위해 이 모든 신성한 수고와 애써야 하는 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다. 현재 우주 시대의 수평선 너머에 감추어진 초월적 봉사의 목표가 있다. 만일 하느님들이 너희를 하나의 긴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여행을 위해서만 계획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전체 우주를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실천적 훈련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거대하게 변화시키고, 천상 창조의 상당한 부분을 선생들과 강사들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적 훈련의 이 거대한 우주 학교를 통해 하나씩 너희를 선도하는 일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필사자 진보 계획의 촉진은 조직된 현 우주의 주요 업무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보이며, 창조된 지능체들의 수많은 계층들 대부분은 이 진보하는 완전 계획의 어떤 위상을 발전시키는 일에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든지 관여되어 있다.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신(神) 포옹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실존의 상승 단계를 지나감에 있어서, 너희는 현재 우주 시대의 한계들 속에서 완전해진 창조체 실존의 모든 가능한 위상과 무대의 바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산다.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파라다이스에 이르기까지 최종자는 현재 있을 수 있는—지능체의 살아있는 계층들, 완전해진 유한 창조 존재들에게 현재 가능한 모든 것을 에워싸는, 전체를 포옹한다. 만일 파라다이스 최종자의 미래 운명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우주들에서의 봉사라면, 이 새로운 그리고 미래의 창조계에서는, 필사자 최종자가 동물로부터 천사로 그리고 천사로부터 영으로 그리고 영으로부터 하느님계로 그들 오랜 세월의 진보 단계의 하나로써, 그들의 상승 훈련의 일부분으로 여러 세계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그러한 경험적 존재로 창조되는 계층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 제시되었음]

carried forward by having the surviving mortal climb up gradually and by actual participation in every step of the ascent.

48:8.3 (558.1) The mortal-survival plan has a practical and serviceable objective; you are not the recipients of all this divine labor and painstaking training only that you may survive just to enjoy endless bliss and eternal ease. There is a goal of transcendent service concealed beyond the horiz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f the Gods designed merely to take you on one long and eternal joy excursion, they certainly would not so largely turn the whole universe into one vast and intricate practical training school, requisition a substantial part of the celestial creation as teachers and instructors, and then spend ages upon ages piloting you, one by one, through this gigantic universe school of experiential training. The furtherance of the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seems to be one of the chief businesses of the present organized universe, and the majority of innumerable orders of created intelligences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advancing some phase of this progressive perfection plan.

48:8.4 (558.2) In traversing the ascending scale of living existence from mortal man to the Deity embrace, you actually live the very life of every possible phase and stage of perfected creature existence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From mortal man to Paradise finaliter embraces all that now can be — encompasses everything presently possible to the living orders of intelligent, perfected finite creature beings. If the future destiny of the Paradise finaliters is service in new universes now in the making, it is assured that in this new and future creation there will be no created orders of experiential beings whose lives will be who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mortal finaliters have lived on some world as a part of their ascending training, as one of the stages of their agelong progress from animal to angel and from angel to spirit and from spirit to God.

48:8.5 (558.3)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49 편 거주되는 세계

⇨ 048

유랜시아 책

050 ⇨

부 II. 지역우주

제 49 편 거주되는 세계

색션

소개

제 1 장. 행성 생명

제 2 장. 행성의 물리적 유형

제 3 장. 비(非)호흡자들의 세계

제 4 장.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

제 5 장.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

제 6 장. 지상-생애에서의 탈출

PAPER 49

THE INHABITED WORLD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lanetary Life

2. Planetary Physical Types

3. Worlds of the Nonbreathers

4. Evolutionary Will Creatures

5.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6. Terrestrial Escape

소개

필사자-거주하는 모든 세계들은 기원과 본성에서 진화적이다. 이들 구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 종족들의 번식 장소, 진화의 요람이다. 상승하는 삶의 각 단위는 바로 앞에 실존하는 무대를 위한 진실 그대로의 훈련 학교이며, 이것은 사람의 진보적 파라다이스 상승의 모든 단계에서 참말이다; 이러한 진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최초의 필사자 체험의 바로 그러한 참말처럼,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초우주의 권역으로 그리고 처음-단계영 실존 달성으로 가려는 그들의 전환 바로 직전까지는 다니지 않는 학교인, 멜기세덱들의 최종 우주 본부 학교까지도 참말이다.

거주되는 모든 세계들은 기본적으로 천상의 관리-행정을 위해 지역체계들로 집단화되며, 이들 지역체계 각각은 약 1,000개의 진화 세계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선포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그 위에서 생존된 지위의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진화적 행성들에도 관계된다.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과 생명 개발의 인간-이전(以前)적 단계에 있는 행성들은 이 집단에 계산되지 않는다.

사타니아 자체는 미완결 체계이며, 오직 619

INTRODUCTION

49:0.1 (559.1) ALL mortal-inhabited worlds are evolutionary in origin and nature. These spheres are the spawning ground, the evolutionary cradle, of the mortal races of time and space. Each unit of the ascendant life is a veritable training school for the stage of existence just ahead, and this is true of every stage of man's progressive Paradise ascent; just as true of the initial mortal experience on an evolutionary planet as of the final universe headquarters school of the Melchizedeks, a school which is not attended by ascending mortals until just before their translation to the regime of the superuniverse and the attainment of first-stage spirit existence.

49:0.2 (559.2) All inhabited worlds are basically grouped for celestial administration into the local systems, and each of these local systems is limited to about one thousand evolutionary worlds. This limitation is by the decree of the Ancients of Days, and it pertains to actual evolutionary planets whereon mortals of survival status are living. Neither worlds finally settled in light and life nor planets in the prehuman stage of life development are reckoned in this group.

49:0.3 (559.3) Satania itself is an unfinished system

개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만이 포함한다. 그러한 행성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서, 의지적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세계들로서 그들이 등록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그래서 유란시아에는 사타니아의 606번이 주어졌다, 긴 생명 진화의 과정이 인간 존재들이 출현으로 최고조에 달한 지역체계에서 606번째를 의미한다. 생명-자질 부여 단계에 가까운 36개의 거주민이 살지 않는 행성들이 있으며, 그 중 몇 개는 생명운반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수백만 년 내에 생명 이식을 위해 준비가 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200개가량의 구체들이 있다.

모든 행성들이 필사 생명을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축 회전 비율이 높은 작은 것들은 생명 거주지로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중앙의 태양 주위를 도는 사타니아 행성들의 물리적 체계들 중 어떤 것들은 거주지가 되기에 너무 크다. 그것들의 거대한 질량은 압박 중력을 가한다. 수많은 이들 구체들 중 많은 것들은 때로 6개 또는 그 이상의 위성들을 가지며, 이 달들은 유란시아의 그것과 크기 면에서 매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들은 거주지로 가장 적합하다.

사타니아에서 거주민이 사는 가장 오래된 세계, 1번 세계는 아노바인데, 거대한 암흑 행성 주변을 도는 그러나 근처에 있는 세 개의 태양의 다른 빛에 노출된 44개 위성들 중의 하나이다. 아노바는 진보적 문명의 발전된 단계에 있다.

제 1 장. 행성 생명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생명의 진보—지상 또는 천상의—는 독단적이지도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 조화우주의 진화는 항상 납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물질적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원형질 세포, 화학적, 전기적, 그리고 다른 기본 에너지들의 교제적인 관계적-연합이다. 화학적 공식들은 각 체계마다 다르며, 살아있는 세포 번식의 기법은 각 지역우주에서 약간 다르지만, 항상 생명운반자들이 물질적 생명의 원시적 반응들을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촉매자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물질의 에너지 순환회로들의 선동자들이다.

지역체계의 모든 세계들은 명백한 물리적 친족관계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성은 그 자체의 생명 등급을 갖는데, 어떤 두 세계도 식물과 동물 자질에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 체계 생명 유형들에 있어서의 이 행성적인 변화들은 생명운반자들의 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다; 우주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수행된다. 네바돈의 법칙은 구원자별의 신성한 명령들이며, 사타

containing only 619 inhabited worlds. Such planets are numbered serially in accordance with their registration as inhabited worlds, as worlds inhabited by will creatures. Thus was Urantia given the number 606 of *Satania*, meaning the 606th world in this local system on which the long evolutionary life process culminated in the appearance of human beings. There are thirty-six uninhabited planets nearing the life-endowment stage, and several are now being made ready for the Life Carriers. There are nearly two hundred spheres which are evolving so as to be ready for life implantation within the next few million years.

49:0.4 (559.4) Not all planets are suited to harbor mortal life. Small ones having a high rate of axial revolution are wholly unsuited for life habitats. In several of the physical systems of Satania the planets revolving around the central sun are too large for habitation, their great mass occasioning oppressive gravity. Many of these enormous spheres have satellites, sometimes a half dozen or more, and these moons are often in size very near that of Urantia, so that they are almost ideal for habitation.

49:0.5 (559.5) The oldest inhabited world of Satania, world number one, is Anova, one of the forty-four satellites revolving around an enormous dark planet but exposed to the differential light of three neighboring suns. Anova is in an advanced stage of progressive civilization.

1. THE PLANETARY LIFE

49:1.1 (559.6)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re gradual in development; the progression of life — terrestrial or celestial — is neither arbitrary nor magical. Cosmic evolution may not always be understandable (predictable), but it is strictly nonaccidental.

49:1.2 (560.1) The biologic unit of material life is the protoplasmic cell, the communal association of chemical, electrical, and other basic energies. The chemical formulas differ in each system, and the technique of living cell reproduction is slightly different in each local universe, but the Life Carriers are always the living catalyzers who initiate the primordial reactions of material life; they are the instigators of the energy circuits of living matter.

49:1.3 (560.2) All the worlds of a local system disclose unmistakable physical kinship; nevertheless, each planet has its own scale of life, no two worlds being exactly alike in plant and animal endowment. These planetary variations in the system life types result from the decisions of the Life Carriers. But these beings are neither capricious nor whimsical; the universe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order. The

니아에 있는 생명의 진화적 계층은 네바돈의 진화적 원형들과 일치된다.

진화는 인간 발달의 법칙이지만, 그 과정 자체는 다른 세계들에서 매우 달라진다. 생명은 때로 하나의 중심지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유란시아의 경우처럼 세 곳에서 시작된다. 대기가 있는 세계들에서 그것은 대개 해양에서 기원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행성의 물리적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개시에 대한 그들의 기능에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행성 생명의 발전에 있어서 식물형태는 항상 동물 형태를 앞서며 동물 원형들이 달라지기 전에 거의 충분히 발전된다. 모든 동물 유형들은 살아있는 것들의 앞선 식물계의 기본 원형들로부터 발전된다; 그것들은 따로 갈라져서 조직화되지 않는다.

생명(生命) 진화의 초기 단계들은 너희의 지금-현재 관점들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사자 사람은 진화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공간의 구체들에서 행성 생명계획의 전체를 결정하는 정확한 체계, 우주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시간과 종족의 많은 숫자의 생산은 통제하는 영향들이 아니다. 쥐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생산하지만, 코끼리가 쥐보다 더 빠르게 진화한다.

행성 진화의 과정은 질서가 있고 통제된다. 더 낮은 집단들로부터 더 높은 유기체들로의 발달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때로는 진화 발달이 선택된 종족에 포함된 생명 원형질의 어떤 유익한 계통들의 파괴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 유전의 우월한 단일 혈통이 유실됨으로써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여러 세대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살아있는 원형질이 선택되고 우월한 혈통들은 그것들이 일단 출현하였을 때에는 세심하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에서 생명의 우월한 이 잠재들은 유란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된다.

제 2 장. 행성의 물리적 유형

각 체계에는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식물과 동물 원형들이 있다. 그러나 생명운반자들은 수많은 공간세계들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물질적 조건들에 맞도록 이들 기본 원형들을 수정할 필요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의 일반화 된 체계 유형을 육성하지만, 일곱 가지 뚜렷한 물리적 유형들이 있고 이 일곱 가지 현저한 차이들의 사소한 변화들은 많이 있다:

laws of Nebadon are the divine mandates of Salvington, and the evolutionary order of life in Satania is in consonance with the evolutionary pattern of Nebadon.

49:1.4 (560.3) Evolution is the rule of human development, but the process itself varies greatly on different worlds. Life is sometimes initiated in one center, sometimes in three, as it was on Urantia. On the atmospheric worlds it usually has a marine origin, but not always; much depends on the physical status of a planet. The Life Carriers have great latitude in their function of life initiation.

49:1.5 (560.4) In the development of planetary life the vegetable form always precedes the animal and is quite fully developed before the animal patterns differentiate. All animal types are developed from the basic patterns of the preceding vegetable kingdom of living things; they are not separately organized.

49:1.6 (560.5) The early stages of life evolution are not altogether in conformity with your present-day views. *Mortal man is not an evolutionary accident.* There is a precise system, a universal law, which determines the unfolding of the planetary life plan on the spheres of space. Time and the production of large numbers of a species are not the controlling influences. Mice reproduce much more rapidly than elephants, yet elephants evolve more rapidly than mice.

49:1.7 (560.6) The process of planetary evolution is orderly and controlled. The development of higher organisms from lower groupings of life is not accidental. Sometimes evolutionary progress is temporarily delayed by the destruction of certain favorable lines of life plasm carried in a selected species. It often requires ages upon ages to recoup the damage occasioned by the loss of a single superior strain of human heredity. These selected and superior strains of living protoplasm should be jealously and intelligently guarded when once they make their appearance. And 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these superior potentials of life are valued much more highly than on Urantia.

2. PLANETARY PHYSICAL TYPES

49:2.1 (560.7) There is a standard and basic pattern of vegetable and animal life in each system. But the Life Carriers are oftentime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modifying these basic patterns to conform to the varying physical conditions which confront them on numerous worlds of space. They foster a generalized system type of mortal creature, but there are seven distinct physical types as well as thousands upon thousands of minor variants of these seven outstanding differentiations:

1. 대기 유형들.

2. 원소 유형들.

3. 중력 유형들.

4. 온도 유형들.

5. 전기 유형들.

6. 에너지화 유형들.

7. 무명의 유형들.

사타니아 체계는 어떤 것들은 매우 빈약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유형들과 수많은 중간 집단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1. 대기 유형들. 필사자의 거주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는 주로 대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생명의 행성 차이에 기여하는 다른 영향들은 비교적 사소하다.

유란시아의 현재 대기 상태는 숨을 쉬는 형태의 사람을 유지시키기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인간 유형은 너무나 변형되어서 초(超)대기와 하위(下位)대기를 갖는 행성들 둘 모두에서 살 수 있다. 그러한 변형들은 동물 생명에게도 확장되었는데, 거주민이 사는 다양한 구체들마다 크게 다르다. 부차적 그리고 초(超)대기 세계들 모두에서 동물 계층들의 매우 큰 변형들이 있다.

사타니아에 있는 대기 유형들 중에서 약 2.5%는 하위호흡자이고, 약 5%는 초(超)호흡자이며, 91% 이상은 중간호흡자인데, 전체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 98.5%에 달한다.

유란시아 인종들과 같은 존재들은 중간 호흡자로 분류된다; 너희는 필사자 실존의 평균적 또는 전형적 호흡 계층을 대표한다. 만약에 너희 근처 이웃인 금성(金星)의 그것과 비슷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지능 창조체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초(超)호흡자 집단에 포함될 것이며, 반면에 너희 바깥 이웃인 화성(火星)의 그것처럼 희박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거주한다면, 하위 호흡자라고 불릴 것이다.

만일 필사자들이 너희 달과 같은 대기가 없는 행성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비(非)호흡자의 분리된 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 유형은 행성 환경에 대해 급진적인 또는 극단적인 조절을 나타내며 별도로 고려된다. 비(非)호흡자들은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서 나머지 1.5%에 달한다.

2. 원소 유형들. 이들 차이들은 물과 공기와 땅에 대한 필사자들의 관계와 함께 취급되어야만 하며, 그들이 이 거주지들과 관련 된 것처럼 지능적 생명의 네 가지 다른 종족들이 있다. 유란시아

49:2.2 (561.1) 1. Atmospheric types.

49:2.3 (561.2) 2. Elemental types.

49:2.4 (561.3) 3. Gravity types.

49:2.5 (561.4) 4. Temperature types.

49:2.6 (561.5) 5. Electric types.

49:2.7 (561.6) 6. Energizing types.

49:2.8 (561.7) 7. Unnamed types.

49:2.9 (561.8) The Satania system contains all of these types and numerous intermediate groups, although some are very sparingly represented.

49:2.10 (561.9) 1. *The atmospheric types.* The physical differences of the worlds of mortal habitation are chiefly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atmosphere; other influences which contribute to the planetary differentiation of life are relatively minor.

49:2.11 (561.10) The present atmospheric status of Urantia is almost ideal for the support of the breathing type of man, but the human type can be so modified that it can live on both the superatmospheric and the subatmospheric planets. Such modifications also extend to the animal life, which differs greatly on the various inhabited spheres. There is a very great modification of animal orders on both the sub- and the superatmospheric worlds.

49:2.12 (561.11) Of the atmospheric types in Satania, about two and one-half per cent are subbreathers, about five per cent superbreathers, and over ninety-one per cent are mid-breathers, altogether accounting for ninety-eight and one-half per cent of the Satania worlds.

49:2.13 (561.12) Beings such as the Urantia races are classified as mid-breathers; you represent the average or typical breathing order of mortal existence. If intelligent creatures should exist on a planet with an atmosphere similar to that of your near neighbor, Venus, they would belong to the superbreather group, while those inhabiting a planet with an atmosphere as thin as that of your outer neighbor, Mars, would be denominated subbreathers.

49:2.14 (561.13) If mortals should inhabit a planet devoid of air, like your moon, they would belong to the separate order of nonbreathers. This type represents a radical or extreme adjustment to the planetary environment and is separately considered. Nonbreathers account for the remaining one and one-half per cent of Satania worlds.

49:2.15 (561.14) 2. *The elemental types.* These differentiations have to do with the relation of mortals to water, air, and land, and there are four distinct species of intelligent life as they are related

종족들은 땅 계층이다.

어떤 세계들의 초기 시대들 동안 우세하였던 환경을 관찰하는 일은 너희에게 매우 불가능하다. 이 별난 조건들은 진화하는 동물 생명으로 하여금 쾌적한 땅과-대기 환경을 매우 초기에 제공한 그 행성들 위에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것의 해양 온상 거주지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초(超)호흡자들의 어떤 세계들에서는, 행성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대기 중의 통행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필사자 유형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편리하다. 이 공중 항해자들은 때로 물 집단과 땅 집단 사이에 존재하며, 그들은 항상 얼마 동안 땅 위에서 사는데, 언젠가는 결국에는 땅 거주자들로 진화한다. 그러나 어떤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땅-유형의 존재들이 된 후에도 여러 시대들 동안 계속 날아다닌다.

어떤 경우에는 공중과 나무 꼭대기들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보호된 열대의 만(灣)에 있는 얕은 물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색다른 구체들의 여명기 종족들의 이 해양 동산의 바닥과 측면과 해안에서 모양을 갖추는 인간 존재들의 원시 종족의 초기 문명을 관측하는 일은 놀라운 일인 동시에 재미나는 일이다.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도 원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나무 위에서 사는 그들의 초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무 꼭대기에서 대부분을 삶으로써 그들의 원시적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포유류(박쥐 계통)의 집단과 그리고 해양에서 서식하면서 포유류 계층에 속하는 물개와 고래와 같은 집단을 아직도 갖고 있다.

사타니아의 기본적 유형들에서 7%는 물 형태, 10%는 공기, 70%는 땅 형태이며 13%는 땅-공기 병합 형태들이다. 그러나 초기 지능 창조체들의 이 변형들은 인간 물고기들도 아니고 인간 새들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 및 인간-이전 유형들인데 초(超)물고기들도 아니고 영화롭게 된 새들도 아니지만 명백하게 필사자이다.

3. 중력 유형들. 창조적 설계의 변형에 의해서, 지능존체들은 유란시아보다 크고 작은 구체들 모두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형성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지 않는 그 행성들의 중력에 어느 정도 순응되었다.

필사자들의 다양한 행성 유형들은 키가 다양하며, 네바돈에서의 평균은 7피트에서 약간 모자란다. 비교적 큰 세계들 중 일부에는 키가 2.5피트에 불과한 존재들이 산다. 필사자의 키는 여기서부터 평균-크기 행성들의 평균키에서 더 적은 크기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서의 약 10피트에 이른다. 사타니아에서는 키가 4피트 이하인 종족이 하나밖에 없다. 사타니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 20%에는 더 큰 행성과 더 작은 행성을 차지하는 변형된 중력 유형들의 필사자들이 산다.

to these habitats. The Urantia races are of the land order.

49:2.16 (561.15) It is quite impossible for you to envisage the environment which prevails during the early ages of some worlds. These unusual conditions make it necessary for the evolving animal life to remain in its marine nursery habitat for longer periods than on those planets which very early provide a hospitable land-and-atmosphere environment. Conversely, on some worlds of the superbreathers, when the planet is not too large, it is sometimes expedient to provide for a mortal type which can readily negotiate atmospheric passage. These air navigators sometimes intervene between the water and land groups, and they always live in a measure upon the ground, eventually evolving into land dwellers. But on some worlds, for ages they continue to fly even after they have become land-type beings.

49:2.17 (562.1) It is both amazing and amusing to observe the early civilization of a primitive race of human beings taking shape, in one case, in the air and treetops and, in another, midst the shallow waters of sheltered tropic basins, as well as on the bottom, sides, and shores of these marine gardens of the dawn races of such extraordinary spheres. Even on Urantia there was a long age during which primitive man preserved himself and advanced his primitive civilization by living for the most part in the treetops as did his earlier arboreal ancestors. And on Urantia you still have a group of diminutive mammals (the bat family) that are air navigators, and your seals and whales, of marine habitat, are also of the mammalian order.

49:2.18 (562.2) In Satania, of the elemental types, seven per cent are water, ten per cent air, seventy per cent land, and thirteen per cent combined land-and-air types. But these modifications of early intelligent creatures are neither human fishes nor human birds. They are of the human and prehuman types, neither superfishes nor glorified birds but distinctly mortal.

49:2.19 (562.3) 3. *The gravity types.* By modification of creative design, intelligent beings are so constructed that they can freely function on spheres both smaller and larger than Urantia, thus being, in measure, accommodated to the gravity of those planets which are not of ideal size and density.

49:2.20 (562.4) The various planetary types of mortals vary in height, the average in Nebadon being a trifle under seven feet. Some of the larger worlds are peopled with beings who are only about two and one-half feet in height. Mortal stature ranges from here on up through the average heights on the average-sized planets to around ten feet on the smaller inhabited spheres. In Satania there is only one race under four feet in height. Twenty per cent of the Satania inhabited worlds are peopled with

4. 온도 유형들. 유란시아 종족들의 생명 범위 보다 훨씬 높고 훨씬 낮은 둘 모두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을 열-규제 기능구조를 참고하여 분류할 때 다섯 개의 다른 계층의 존재들이 있다. 이 척도로 볼 때 유란시아 종족들은 3번째이다. 사타니아 세계들 중 30%에는 변형된 온도 유형들이 산다. 유란시아인들과 비교할 때, 12%는 비교적 높은 범위에 해당하고, 중간-온도 집단에서 활동하는 18%는 비교적 낮은 범위에 해당한다.

5. 전기 유형들. 세계들의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전자적 습성은 크게 다양하다. 구체들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견디도록 다양하게 형성된 필사자 생명의 10가지 설계들이 있다. 이 10가지 종류들은 또한 정상적인 태양광의 화학적 광선에 대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 작은 물리적 차이들은 어떤 면으로든 지적 또는 영적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필사자 생명의 전기적 집단들 중에서, 거의 23%는 실존에서의 유란시아 유형인 4번 부류에 속한다. 이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전체적인 비율로, 1번 1퍼센트; 2번 2퍼센트; 3번 5퍼센트; 4번 23퍼센트; 5번 27퍼센트; 6번 24퍼센트; 7번 8퍼센트; 8번 5퍼센트; 9번 3퍼센트; 10번 2퍼센트이다.

6. 에너지화 유형들. 모든 세계들이 에너지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계들이 현재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기체들의 호흡 교환에 맞는 대기 해양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많은 행성들의 초기 및 후기 단계들에서, 너희의 현재 계층의 존재들이 실존할 수 없었다; 행성의 호흡 요소들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그러나 지능 생명에 필수적인 다른 모든 조건들이 적당할 때, 생명운반자들은 그러한 세계들에 필사자 실존의 변형된 형태,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직접적 힘 변형과 빛-에너지 수단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진행 교환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를 자주 형성한다.

동물적 그리고 필사자 영양 섭취에는 여섯 개의 다른 유형들이 있다: 하위호흡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영양 섭취를 택하고, 해양 거주자들은 두 번째, 중간호흡자들은 유란시아에서처럼 세 번째를 택한다. 초(超)호흡자들은 네 번째 유형의 에너지 섭취를 택하는 반면, 비(非)호흡자들은 다섯 번째 계층의 영양 섭취와 에너지를 활용한다. 에너지화의 여섯 번째 기법은 중도(中途) 창조체들에 제한되어 있다.

mortals of the modified gravity types occupying the larger and the smaller planets.

49:2.21 (562.5) 4. *The temperature types.* It is possible to create living beings who can withstand temperatures both much higher and much lower than the life range of the Urantia races. There are five distinct orders of beings as they are classified with reference to heat-regulating mechanisms. In this scale the Urantia races are number three. Thirty per cent of Satania worlds are peopled with races of modified temperature types. Twelve per cent belong to the higher temperature ranges, eighteen per cent to the lower, as compared with Urantians, who function in the mid-temperature group.

49:2.22 (562.6) 5. *The electric types.* The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nic behavior of the worlds varies greatly. There are ten designs of mortal life variously fashioned to withstand the differential energy of the spheres. These ten varieties also react in slightly different ways to the chemical rays of ordinary sunlight. But these slight physical variations in no way affect the intellectual or the spiritual life.

49:2.23 (562.7) Of the electric groupings of mortal life, almost twenty-three per cent belong to class number four, the Urantia type of existence. These types are distributed as follows: number 1, one per cent; number 2, two per cent; number 3, five per cent; number 4, twenty-three per cent; number 5, twenty-seven per cent; number 6, twenty-four per cent; number 7, eight per cent; number 8, five per cent; number 9, three per cent; number 10, two per cent — in whole percentages.

49:2.24 (563.1) 6. *The energizing types.* Not all worlds are alike in the manner of taking in energy. Not all inhabited worlds have an atmospheric ocean suited to respiratory exchange of gases, such as is present on Urantia. During the earlier and the later stages of many planets, beings of your present order could not exist; and when the respiratory factors of a planet are very high or very low, but when all other prerequisites to intelligent life are adequate, the Life Carriers often establish on such worlds a modified form of mortal existence, beings who are competent to effect their life-process exchanges directly by means of light-energy and the firsthand power transmuta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49:2.25 (563.2) There are six differing types of animal and mortal nutrition: The subbreathers employ the first type of nutrition, the marine dwellers the second, the mid-breathers the third, as on Urantia. The superbreathers employ the fourth type of energy intake, while the nonbreathers utilize the fifth order of nutrition and energy. The sixth technique of energizing is limited to the midway creatures.

7. 무명(無名)의 유형들. 행성 생명에는 수많은 다른 물리적 다양성들이 있지만, 이 차이들 모두는 전적으로 해부학적 변형과 생리적 차이 그리고 전기화학적 조절의 문제이다. 그러한 특징들은 지적 또는 영적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다.

49:2.26 (563.3) 7. *The unnamed types.*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physical variations in planetary life, but all of these differences are wholly matters of anatomical modification, physiologic differentiation, and electrochemical adjustment. Such distinctions do not concern the intellectual or the spiritual life.

제 3 장. 비(非)호흡자들의 세계

3. WORLDS OF THE NONBREATHERS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에는 숨을 쉬는 유형의 지능 존재들이 산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대기가 희박하거나 없는 세계들에서 살 수 있는 필사자 계층들도 있다. 오르본톤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중에는 이 유형이 7퍼센트 미만이다. 네바돈의 경우 이 비율은 3퍼센트 미만이다. 사타니아 전체에는 그러한 세계들이 9개밖에 없다.

49:3.1 (563.4) The majority of inhabited planets are peopled with the breathing type of intelligent beings. But there are also orders of mortals who are able to live on worlds with little or no air. Of the Orvonton inhabited worlds this type amounts to less than seven per cent. In Nebadon this percentage is less than three. In all Satania there are only nine such worlds.

사타니아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비(非)호흡자 유형이 그토록 매우 적은 이유는 놀라시아텍의 비교적 최근에 조직화 된 이 부분이 아직도 유성의 공간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 마찰 대기가 없는 세계들은 이 떠돌이 에 의해 끊임없이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혜성들은 유성 무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개 그것들은 물질의 비교적 작은 몸체들로 붕괴된다.

49:3.2 (563.5) There are so very few of the nonbreather type of inhabited worlds in Satania because this more recently organized section of Norlatiadek still abounds in meteoric space bodies; and worlds without a protective friction atmosphere are subject to incessant bombardment by these wanderers. Even some of the comets consist of meteor swarms, but as a rule they are disrupted smaller bodies of matter.

수많은 운석들이 거의 초당 200마일의 속도로 매일같이 유란시아의 대기 속으로 들어온다. 비(非)호흡 세계들에서는 진보된 종족들이 그 운석들을 태워버리거나 회피시키도록 작동하는 전기적 장치들을 만듦으로써 운석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들이 보호된 이 지역들을 벗어나서 모험을 할 때 그들은 큰 위험에 직면한다.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위험한 전기적 폭풍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엄청난 에너지 동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 동안 거주민들은 방어 절연체의 특별한 구조물들 속에 피해야 한다.

49:3.3 (563.6) Millions upon millions of meteorites enter the atmosphere of Urantia daily, coming in at the rate of almost two hundred miles a second. On the nonbreathing worlds the advanced races must do much to protect themselves from meteor damage by making electrical installations which operate to consume or shunt the meteors. Great danger confronts them when they venture beyond these protected zones. These worlds are also subject to disastrous electrical storms of a nature unknown on Urantia. During such times of tremendous energy fluctuation the inhabitants must take refuge in their special structures of protective insulation.

비(非)호흡자들의 세계들의 생명은 유란시아에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非)호흡자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신경 체계의 반응들과 열-규제 기능구조 그리고 특별한 이 종족들의 신진대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그러한 기능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식 작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삶의 활동이 다르며, 출산 방식조차도 어느 정도 다르다.

49:3.4 (563.7) Life on the worlds of the nonbreathers is radically different from what it is on Urantia. The nonbreathers do not eat food or drink water as do the Urantia races. The reactions of the nervous system, the heat-regulating mechanism, and the metabolism of these specialized peoples are radically different from such functions of Urantia mortals. Almost every act of living, aside from reproduction, differs, and even the methods of procreation are somewhat different.

비(非)호흡 세계들의 동물 종족들은 대기가 있는 행성들에서 발견되는 그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명의 비(非)호흡 계획은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의 실존 기법과 다르며; 심지어는 생존에 있어서도, 영 융합 후보자들로서, 그들 종족들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삶을 즐기며 대기가 있는 세계들에서 사는 필사자들에 의

49:3.5 (564.1) On the nonbreathing worlds the animal species are radically unlike those found on the atmospheric planets. The nonbreathing plan of life varies from the technique of existence on an atmospheric world; even in survival their peoples differ, being candidates for Spirit fusion. Nevertheless, these beings enjoy life and carry

해 체험되는 것과 동일한 상대적인 시련과 기쁨을 가지고 영역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마음과 특성에서 비(非)호흡자들은 다른 필사자 유형들과 다르지 않다.

너희는 이 유형의 필사자의 행성 행위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들의 종족은 유란시아에 아주 근접된 구체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제 4 장.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

다른 세계들의 필사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들이 있으며, 같은 지적 그리고 육체적 유형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의지 존엄성의 모든 필사자들은 직립, 양족(兩足) 동물들이다.

여섯 가지 기본적인 진화 종족들이 있다: 셋은 1차적이고—적색, 황색, 청색; 셋은 2차적이다—주황색, 녹색, 남색. 거주민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에는 이 종족들 모두가 있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행성들 대부분은 세 개의 1차 유형들만을 포함한다. 어떤 지역체계들에도 역시 이 세 종족들만 있다.

인간 존재들의 평균적인 특별 육체-감각 자질은 12가지이지만, 3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의 특별 감각들은 한 개의 뇌와 두 개의 뇌를 가진 유형들보다 약간 더 확장되어 있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보다 상당히 많이 보며 들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대개 하나씩 태어나고, 여러 명이 태어나는 일은 예외적이며, 가족생활은 모든 유형의 행성들에서 상당히 일정하다. 성(性) 동등성이 진보된 모든 세계들에 보급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마음 자질과 영적 지위에 있어서 동일하다. 우리는 행성을 하나의 성이 다른 성을 압제하기를 추구하는 한, 야만상태로부터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조체 체험의 이러한 특징은 물질아들과 딸의 도착 이후에 항상 크게 개선된다.

계절들과 온도 변화는 태양이 비추어지고 태양의 열을 받는 모든 행성들에서 발생된다. 농업은 대기를 갖는 모든 세계들에서 보편적이다; 땅을 경작하는 일은 그러한 모든 행성들의 발전된 종족들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일이다.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광대하지는 않더라도, 필사자들은 모두 그들의 초기 시대에 극히 미세한 적들과 동일한 일반적 투쟁을 벌인다. 생명 기간은 원시적인 세계들에서의 25년으로부터 더욱 진보되고 오래된 구체들에서의 500년에 이르기까지 행성들마다 다르다.

인간 존재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는데 부속적인 동시에 인종적이다. 이들 집단적 격리는 그들의 기원과 체질에서 선천적이다. 그러한 경향들은 오직 진보된 문명에 의해서만 그리고 점진적인

forward the activities of the realm with the same relative trials and joys that are experienced by the mortals living on atmospheric worlds. In mind and character the nonbreathers do not differ from other mortal types.

49:3.6 (564.2) You would be more than interested in the planetary conduct of this type of mortal because such a race of beings inhabits a sphere in close proximity to Urantia.

4. EVOLUTIONARY WILL CREATURES

49:4.1 (564.3)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mortals of the different worlds, even among those belonging to the same intellectual and physical types, but all mortals of will dignity are erect animals, bipeds.

49:4.2 (564.4) There are six basic evolutionary races: three primary — red, yellow, and blue; and three secondary — orange, green, and indigo. Most inhabited worlds have all of these races, but many of the three-brained planets harbor only the three primary types. Some local systems also have only these three races.

49:4.3 (564.5) The average special physical-sense endowment of human beings is twelve, though the special senses of the three-brained mortals are extended slightly beyond those of the one- and two-brained types; they can see and hear considerably more than the Urantia races.

49:4.4 (564.6) Young are usually born singly, multiple births being the exception, and the family life is fairly uniform on all types of planets. Sex equality prevails on all advanced worlds; male and female are equal in mind endowment and spiritual status. We do not regard a planet as having emerged from barbarism so long as one sex seeks to tyrannize over the other. This feature of creature experience is always greatly improved after the arrival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49:4.5 (564.7) Seasons and temperature variations occur on all sunlit and sun-heated planets. Agriculture is universal on all atmospheric worlds; tilling the soil is the one pursuit that is common to the advancing races of all such planets.

49:4.6 (564.8) Mortals all have the same general struggles with microscopic foes in their early days, such as you now experience on Urantia, though perhaps not so extensive. The length of life varies on the different planets from twenty-five years on the primitive worlds to near five hundred on the more advanced and older spheres.

49:4.7 (564.9) Human beings are all gregarious, both tribal and racial. These group segregations are inherent in their origin and constitution. Such tendencies can be modified only by advancing

영성화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통치상의 문제들은 행성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적인 체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마음은 무한한 영으로부터 증여이며 다양한 환경들에서 매우 동일하게 기능한다. 지역체계에 있는 의지 창조체들의 육체적 본성들을 특징짓는 특정한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들과는 상관없이, 필사자들의 마음은 동족이다. 개인적인 또는 육체적인 행성의 차이들과는 상관없이, 이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 모두의 정신적 삶은 매우 비슷하며, 죽음 직후의 그들의 생애들은 매우 동일하다.

그러나 불멸의 영이 없는 필사자 마음은 생존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필멸이다; 오직 증여된 영만이 불멸이다. 생존은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한 영성화—불멸 혼의 탄생과 진화—되는 것에 의존한다; 적어도, 물질적 마음의 영적 변형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대한 반목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제 5 장.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들에 대해 적당하게 묘사하는 일은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에 대해 너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필사 창조체들은 여러 관점들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행성 환경에의 조절.
2. 뇌-유형 계통들.
3. 영-수용 계통들.
4. 행성-필사자 신(新)시대들.
5. 창조체-친족관계들.
6. 조절자-융합 계통들.
7. 현세 탈출의 기법들.

일곱 초우주들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에는 진화적인 창조체 삶의 이 일곱 가지 일반화 된 부류들 각각의 어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들로 동시적으로 분류되는 필사자들이 산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분류들도 아(亞)중간자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지능적 생명의 어떤 다른 형태들을 위한 규정들이 없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는, 그것들이 이 글에서 제시되어온 바와 같이, 진화적인 필사 창조체들이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생명 형태들도 있다.

civilization and by gradual spiritu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governmental problems of the inhabited worlds vary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the planet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successive sojourns of the divine Sons.

49:4.8 (564.10) Mind is the bestowal of the Infinite Spirit and functions quite the same in diverse environments. The mind of mortals is akin, regardless of certain structural and chemical differences which characterize the physical natures of the will creatures of the local systems. Regardless of personal or physical planetary differences, the mental life of all these various orders of mortals is very similar, and their immediate careers after death are very much alike.

49:4.9 (565.1) But mortal mind without immortal spirit cannot survive. The mind of man is mortal; only the bestowed spirit is immortal. Survival is dependent on spiritualization by the ministry of the Adjuster — on the birth and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at least, there must not have developed an antagonism towards the Adjuster's mission of effecting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the material mind.

5.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49:5.1 (565.2) It will be somewhat difficult to make an adequate portrayal of the planetary series of mortals because you know so little about them, and because there are so many variations. Mortal creatures may, however, be studied from numerous viewpoints, among which are the following:

- 49:5.2 (565.3) 1. Adjustment to planetary environment.
- 49:5.3 (565.4) 2. Brain-type series.
- 49:5.4 (565.5) 3. Spirit-reception series.
- 49:5.5 (565.6) 4. Planetary-mortal epochs.
- 49:5.6 (565.7) 5. Creature-kinship serials.
- 49:5.7 (565.8) 6. Adjuster-fusion series.
- 49:5.8 (565.9) 7. Techniques of terrestrial escape.

49:5.9 (565.10) The inhabited sphere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peopled with mortals who simultaneously classify in some one or more categories of each of these seven generalized classes of evolutionary creature life. But even these general classifications make no provision for such beings as midsoniters nor for certain other forms of intelligent life. The inhabited worlds, as they have been presented in these narratives, are peopled with evolutionary mortal creatures, but there are other life forms.

1. 행성 환경에의 조절. 행성 환경에 대한 창조체 생명의 조절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 정상적인 조절 집단, 급진적 조절 집단, 실험적 집단 등이 있다.

행성 상황들에 대한 정상적인 조절들은 그 전에 고려된 일반적인 물리적 원형틀들이 따른다. 비(非)호흡자들의 세계들은 급진적 또는 극단적 조절을 대표하지만, 다른 유형들 역시 이 집단에 포함된다. 실험적 세계들은 대개 전형적인 형태들에게 이상적으로 적응되었으며, 이러한 10진법 소수의 행성들에서는 생명운반자들이 표준 생명 설계들에서 유익한 변화들을 산출하려고 시도한다. 너희 세계가 실험적 행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타니아에 있는 그것의 자매가 되는 구체들과 현저하게 다르며;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형태들 중 많은 것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평범한 종족들이 너희 행성에는 없다.

네바돈 우주에서, 생명-변형 세계들 전체가 일련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지정된 행정-관리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는 우주 관련자들의 특별 권역을 구성 한다; 이 모든 실험적 세계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라고 알려진 고참 최종자인 우주 지도자 무리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는다.

2. 뇌-유형 계열들. 필사자들의 하나의 육체적 확일성은 뇌와 신경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구조에는 세 가지 기본 조직들,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의 뇌 유형이 있다: 유란시아인들은 두 개의 뇌 유형이다, 한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보다 어느 정도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철학적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 보다는 어느 정도 덜 영적이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이다. 이 뇌의 차이들이 인간-이전 동물 실존들을 특징짓기도 한다.

너희는 유란시아인 대뇌(大腦) 피질의 두 개의-반구체 유형에서 유추하여 하나의 뇌를 가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의 세 번째 뇌는 너희의 아래쪽 또는 발육이 부진한 뇌 형태가 진화한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그것은 좀 더 높은 일들을 위해 우월한 두개의 뇌들을 자유롭게 남겨둔 채 주로 육체적 활동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지점까지 발전했다: 하나는 지적인 기능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장 조절자의 영적-대응 활동들을 위한 것이다.

한 개의 뇌를 가진 종족들의 현세적 달성들이 두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과 비교하여 약간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세 개의 뇌를 가진 집단의 비교적 오래된 행성들은 유란시아인들을 몹시 놀라게 할 만한 문명들을 나타내며, 그것은 비교로서 너희의 문명을 어느 정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기계적인 발달과 물질적인 문명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49:5.10 (565.11) 1. *Adjustment to planetary environment.* There are three general groups of inhabited worlds from the standpoint of the adjustment of creature life to the planetary environment: the normal adjustment group, the radical adjustment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49:5.11 (565.12) Normal adjustments to planetary conditions follow the general physical patterns previously considered. The worlds of the nonbreathers typify the radical or extreme adjustment, but other types are also included in this group. Experimental worlds are usually ideally adapted to the typical life forms, and on these decimal planets the Life Carriers attempt to produce beneficial variations in the standard life designs. Since your world is an experimental planet, it differs markedly from its sister spheres in Satania; many forms of life have appeared on Urantia that are not found elsewhere; likewise are many common species absent from your planet.

49:5.12 (565.13) In the universe of Nebadon, all the life-modification worlds are serially linked together and constitute a special domain of universe affairs which is given attention by designated administrators; and all of these experimental worlds are periodically inspected by a corps of universe directors whose chief is the veteran finaliter known in Satania as Tabamantia.

49:5.13 (566.1) 2. *Brain-type series.* The one physical uniformity of mortals is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basic organizations of the brain mechanism: the one-, the two-, and the three-brained types. Urantians are of the two-brained type, somewhat more imaginative, adventurous, and philosophical than the one-brained mortals but somewhat less spiritual, ethical, and worshipful than the three-brained orders. These brain differences characterize even the prehuman animal existences.

49:5.14 (566.2) From the two-hemisphere type of the Urantian cerebral cortex you can, by analogy, grasp something of the one-brained type. The third brain of the three-brained orders is best conceived as an evolvment of your lower or rudimentary form of brain, which is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it functions chiefly in control of physical activities, leaving the two superior brains free for higher engagements: one for intellectual functions and the other for the spiritual-counterparting activities of the Thought Adjuster.

49:5.15 (566.3) While the terrestrial attainments of the one-brained races are slightly limited in comparison with the two-brained orders, the older planets of the three-brained group exhibit civilizations that would astound Urantians, and which would somewhat shame yours by comparison. In mechanical development and

지적인 진보에서도, 두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 세계들은 세 개의 뇌를 가진 구체들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마음의 통제와 지적이고 영적인 상호보답의 발달 면에서 보면, 너희는 어느 정도 뒤떨어진다.

어느 세계 또는 세계들의 집단의 지적 진보 또는 영적 달성에 관한 그러한 모든 비교적인 평가들은 행성의 나이를 공정하게 고려해야만 하며;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이 나이, 생물학적 향상자들의 도움,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수반된 생명활동들에 의존된다.

세 개의 뇌를 가진 종족들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보다 약간 더 높은 행성 진화를 할 수 있는 반면, 그 모두는 같은 유형의 원형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란시아에서 인간 존재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행성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 세 유형의 필사자들은 지역체계들의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행성 환경들은, 다른 세계들 위에 이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을 계획하는 생명운반자들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생명운반자들의 특권이다.

이 세 계층들은 상승 생애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있다. 각각은 동일한 지적 발달 단계를 건너가야만 하며,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들을 완수해야만 한다. 서로 다른 이 세계들의 체계 관리-행정과 별자리 전반적-통제는 균일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행성영주들의 체제도 동일하다.

3. 영-수용 계열들. 영 관련사들과 접촉하는 것에 관련된 마음 설계의 세 집단들이 있다. 이 분류는 필사자들의 하나-, 둘-,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분비선 화학작용을 말하는데, 더 특별하게는 뇌하수체 몸체들과 비교될 수 있는 특별한 분비선들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세계들의 종족들은 하나의 분비선을 갖고, 다른 세계들은 유란시아인들처럼 두 개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구체들의 종족들은 세 개의 독특한 이 몸체들을 갖는다. 선천적인 상상력과 영적 접수성은 서로 다른 이 화학적 자질에 의해 명확하게 영향을 받는다.

영-수용 유형들에서, 65퍼센트가, 유란시아 종족들과 같이, 두 번째 집단이다. 12퍼센트가 첫 번째 유형이며, 자연적으로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23퍼센트는 현세의 삶 동안 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끝나며; 이 모든 종족적 차이들은 오직 육신의 삶에만 관계된다.

4. 행성-필사자 신(新)시대들. 이 분류는 현재의 섭리시대다. 땅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천상의 생명활동을 받아들이는 그의 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그러한 섭리시대가 연

material civilization, even in intellectual progress, the two-brained mortal worlds are able to equal the three-brained spheres. But in the higher control of mind and development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reciprocation, you are somewhat inferior.

49:5.16 (566.4) All such comparative estimates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gress or the spiritual attainments of any world or group of worlds should in fairness recognize planetary age; much, very much, depends on age, the help of the biologic uplifters, and the subsequent missions of the various orders of the divine Sons.

49:5.17 (566.5) While the three-brained peoples are capable of a slightly higher planetary evolution than either the one- or two-brained orders, all have the same type of life plasm and carry on planetary activities in very similar ways, much as do human beings on Urantia. These three types of mortal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worlds of the local systems. In the majority of cases planetary conditions had very little to do with the decisions of the Life Carriers to project these varied orders of mortals on the different worlds; it is a prerogative of the Life Carriers thus to plan and execute.

49:5.18 (566.6) These three orders stand on an equal footing in the ascension career. Each must traverse the same intellectual scale of development, and each must master the same spiritual tests of progression. The system administration and the constellation overcontrol of these different worlds are uniformly free from discrimination; even the regimes of the Planetary Princes are identical.

49:5.19 (566.7) 3. *Spirit-reception series.* There are three groups of mind design as related to contact with spirit affairs. This classification does not refer to the one-, two-, and three-brained orders of mortals; it refers primarily to gland chemistry, more particularly to the organization of certain glands comparable to the pituitary bodies. The races on some worlds have one gland, on others two, as do Urantians, while on still other spheres the races have three of these unique bodies. The inherent imagination and spiritual receptivity is definitely influenced by this differential chemical endowment.

49:5.20 (566.8) Of the spirit-reception types, sixty-five per cent are of the second group, like the Urantia races. Twelve per cent are of the first type, naturally less receptive, while twenty-three per cent are more spiritually inclined during terrestrial life. But such distinctions do not survive natural death; all of these racial differences pertain only to the life in the flesh.

49:5.21 (567.1) 4. *Planetary-mortal epochs.* This classification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temporal dispensations as they affect man's terrestrial status and his reception of celestial

속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생명은 생명운반자에 의해 행성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필사자 사람의 진화적 출현 이후 어느 정도까지 그것의 발전을 감시한다. 생명운반자들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영역의 통치자로서 행성영주를 마땅히 취임시킨다. 충분한 할당수의 하위 보조자들과 사망활동하는 조력자들이 이 통치자와 함께 거기에 도착하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의 도착과 함께 동시에 있게 된다.

인간 집단화의 창발과 함께, 이 행성영주는 인간 문명을 개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 사회를 초점화 시키기 위해 도착한다. 혼란된 너희세계는 행성영주들이 통치하는 초기 시대들의 표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가 체계 주권자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일이 유란시아에서의 그러한 관리·행정에 있어서 거의 초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행성은 그 이후로 계속 모진 비바람이 치는 길을 걸어 왔다.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는, 종족적 진보가 행성영주의 체제 동안 그것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정점을 달성하며, 그 후 조금 있다가 체계 주권자가 물질아들과 딸을 행성으로 보낸다. 유입된 이 존재들은 생물학적 향상자들의 봉사를 수행하며; 유란시아에서의 그들의 불이행은 너희 행성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간 종족의 지적 그리고 윤리적 진보가 진화적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치안법관으로서의 임무를 띤 파라다이스의 아보날 아들이 거기로 오며; 그 후에 그러한 세계의 영적인 지위가 자연적인 달성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한 명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행성을 방문한다. 증여 아들의 주요 임무는 행성 지위를 수립하고, 행성 기능을 하도록 진리의 영을 양도하며, 그리하여 생각 조절자들의 우주적 도래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 유란시아는 다시 빗나갔다: 너희 세계에서는 치안법관의 임무가 수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보날 계층의 너희의 증여 아들도 없었다; 너희 행성은 주권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필사자 고향 행성이 되는 현저한 명예를 누렸다.

신성한 아들관계의 연속적인 모든 계층들의 사망활동의 결과로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과 그곳들의 진보하는 종족들은 행성 진화의 절정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이제 절정의 임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도착을 위해 성숙되었다. 교사 아들들의 이 신(新)시대는 최종적인 행성 시대—진화적 유토피아—빛과 생명의 시대를 향한 입구에 있다.

인간 존재들에 대한 이 분류는 뒤이어지는 글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ministry.

49:5.22 (567.2) Life is initiated on the planets by the Life Carriers, who watch over its development until sometime after the evolutionary appearance of mortal man. Before the Life Carriers leave a planet, they duly install a Planetary Prince as ruler of the realm. With this ruler there arrives a full quota of subordinate auxiliaries and ministering helpers, and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living and the dead is simultaneous with his arrival.

49:5.23 (567.3) With the emergence of human groupings, this Planetary Prince arrives to inaugurate human civilization and to focalize human society. Your world of confusion is no criterion of the early days of the reign of the Planetary Princes, for it was near the beginning of such an administration on Urantia that your Planetary Prince, Caligastia, cast his lot with the rebellion of the System Sovereign, Lucifer. Your planet has pursued a stormy course ever since.

49:5.24 (567.4) On a normal evolutionary world, racial progress attains its natural biologic peak during the regime of the Planetary Prince, and shortly thereafter the System Sovereign dispatches a Material Son and Daughter to that planet. These imported beings are of service as biologic uplifters; their default on Urantia further complicated your planetary history.

49:5.25 (567.5) When the intellectual and ethical progress of a human race has reached the limits of evolutionary development, there comes an Avonal Son of Paradise on a magisterial mission; and later on, when the spiritual status of such a world is nearing its limit of natural attainment, the planet is visited by a Paradise bestowal Son. The chief mission of a bestowal Son is to establish the planetary status, release the Spirit of Truth for planetary function, and thus effect the universal coming of the Thought Adjusters.

49:5.26 (567.6) Here, again, Urantia deviates: There has never been a magisterial mission on your world, neither was your bestowal Son of the Avonal order; your planet enjoyed the signal honor of becoming the mortal home planet of the Sovereign Son, Michael of Nebadon.

49:5.27 (567.7) As a result of the ministry of all the successive orders of divine sonship, the inhabited worlds and their advancing races begin to approach the apex of planetary evolution. Such worlds now become ripe for the culminating mission, the arrival of the Trinity Teacher Sons. This epoch of the Teacher Sons is the vestibule to the final planetary age — evolutionary utopia — the age of light and life.

49:5.28 (567.8) This classification of human beings will receive particular attention in a succeeding paper.

5. 창조체-친족관계 계열들. 행성들은 체계들과 별자리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수직적으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우주 관리-행정은 유형과 계통 그리고 다른 관계들에 따라 수평적으로 집단화를 준비한다. 우주의 이런 측면의 관리-행정은, 다른 구체들에서 독립적으로 육성되어 온 친속 본성에서의 행동들의 조화-협동에 더욱 특별하게 관계한다. 우주 창조체들의 관련된 이 부류들은 오랜-체험을 가진 최종자에 의해 지배되는 높은 개인성들의 특별한 혼합 무리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는다.

이들 친족관계 요소들은 모든 차원들에서 현시된다, 왜냐하면 유사 계열들이 비인간 개인성들 뿐만 아니라 필사 창조체들 가운데에서도—삼지어는 인간과 초인간 계층들 사이에서도—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능 존재들은 각각 일곱 개의 주된 부분들의 12개 대집단들에서 수직적으로 관계된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이 독특하게 관련된 집단들의 조화-협동은 최극존재의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어떤 기법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6. 조절자-융합 계열들. 융합 이전의 체험 동안 모든 필사자들의 영적인 분류 또는 집단화는 내주하는 신비 감시자에 대한 개인성 지위의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네바돈의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거의 90퍼센트가 조절자-융합될 필사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접한 우주는 반이 약간 넘는 세계들이 영원한 융합을 위하여 조절자-내주되어질 후보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7. 지상-생애에서의 탈출 기법들. 개별 인간 생명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창조체 출산과 자연적 탄생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지상에서의 지위를 탈출하고 파라도이스 상승자들의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흐름에 도달하는 기법은 많이 있다.

제 6 장. 지상-생애에서의 탈출

모든 다른 물리적 유형들과 필사자들의 행성 계통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수호천사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다양한 계층의 메신저 무리들의 사명활동을 똑같이 누린다. 모두는 자연적인 죽음에서의 해방에 의해 육신의 족쇄로부터 똑같이 자유로워지며, 모두는 그 후로 영적 진화와 마음 진보의 모론시아 세계들을 향하여 똑같이 나아간다.

때로는, 행성의 권한들 또는 체계 통치자들의 동의에 따라, 잠자는 생존자들의 특별한 부활들이 수행된다. 그러한 부활들은 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모두는 아니지만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특별한 이 부활들은 필사자 상승에 대한

49:5.29 (567.9) 5. *Creature-kinship serials.* Planets are not only organized vertically into systems, constellations, and so on, but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lso provides for horizontal groupings according to type, series, and other relationships. This lateral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pertains more particularly to the co-ordination of activities of a kindred nature which have been independently fostered on different spheres. These related classes of universe creatures are periodically inspected by certain composite corps of high personalities presided over by long-experienced finaliters.

49:5.30 (568.1) These kinship factors are manifest on all levels, for kinship serials exist among nonhuman personalities as well as among mortal creatures — even between human and superhuman orders. Intelligent beings are vertically related in twelve great groups of seven major divisions each. The co-ordination of these uniquely related groups of living beings is probably effected by some not fully comprehended technique of the Supreme Being.

49:5.31 (568.2) 6. *Adjuster-fusion series.* The spiritual classification or grouping of all mortals during their pre-fusion experience is wholly determined by the relation of the personality status to the indwelling Mystery Monitor. Almost ninety per cent of the inhabited worlds of Nebadon are peopled with Adjuster-fusion mortals in contrast with a near-by universe where scarcely more than one half of the worlds harbor beings who are Adjuster-indwelt candidates for eternal fusion.

49:5.32 (568.3) 7. *Techniques of terrestrial escape.* There is fundamentally only one way in which individual human life can be initiated on the inhabited worlds, and that is through creature procreation and natural birth; but there are numerous techniques whereby man escapes his terrestrial status and gains access to the inward moving stream of Paradise ascenders.

6. TERRESTRIAL ESCAPE

49:6.1 (568.4) All of the differing physical types and planetary series of mortals alike enjoy the ministry of Thought Adjusters, guardian angels, and the various orders of the messenger hosts of the Infinite Spirit. All alike are liberated from the bonds of flesh by the emancipation of natural death, and all alike go thence to the morontia worlds of spiritual evolution and mind progress.

49:6.2 (568.5) From time to time, on motion of the planetary authorities or the system rulers, special resurrections of the sleeping survivors are conducted. Such resurrections occur at least every millennium of planetary time, when not all but "many of those who sleep in the dust awake."

지역우주계획에서 특별한 봉사를 위해 특별한 집단의 상승자들을 동원시킬 경우이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 부활들과 관련하여 실천적 이유들과 정서적인 관계적-연합들이 둘 모두 있다.

거주되는 세계의 초기 시대들에 두루, 특별한 그리고 1,000년마다의 부활들에서 많은 이들이 맨션구체들로 불림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행성 봉사의 신성한 아들의 출현과 연관된 새로운 섭리의 시작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1. 섭리시대에서 또는 집단 계층에서 생존되는 필사자. 최초의 조절자가 거주 세계에 처음으로 도착할 때 수호 세라핌천사 역시 자신들의 출현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지상-생애에서의 탈출에 필수불가결하다.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명-소멸 기간에 두루 그들의 새롭게 진화된 영적 가치들과 영원한 실체들 그리고 불멸의 혼들은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수호 세라핌천사에 의해 신성하게 보관된다.

잠자는 생존자들에게 배정된 집단 수호자들은 그들 세계에 심판 아들들이 도래하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기능한다. "그 아들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사망에서 그가 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잠자는 필사자의 재(再)개인성구현에 배정된 각 세라핌천사와 함께, 되돌아온 조절자, 곧 육체를 입은 시절 동안 그의 안에 살았던 바로 그 동일한 불멸 아버지의 단편이 함께 활동하며, 그에 따라서 정체성이 복원되고 개인성이 부활된다. 그들의 주체들이 잠자는 동안, 기다리는 이 조절자들은 신성별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필사자에 결코 내주하지 않는다.

필사자 실존의 더 오래된 세계들이 이렇게 높이 발전되고 그리고 모론시아 삶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풀려난 인간 존재들의 멋진 영적 유형들을 보호하는 반면, 동물-기원 종족들의 초기 시대들은 조절자들과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숙한 원시적 필사자들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이 필사자들을 다시 깨우는 일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불멸의 영의 개별화된 부분과 함께 수호 세라핌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은 섭리의 호출 명령으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그러나 영역의 구원되지 못할 개인성들에 관해서는, 어떤 불멸의 영도 운명의 수호자들 집단과 함께 기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창조체 실존의 중지를 이룬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록들 중 어떤 것들은 이 사건들이 필사자 죽음의 행성들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묘사해 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맨션세계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2. 개별적 상승 계층의 필사자들. 인간 존재들

These special resurrections are the occasion for mobilizing special groups of ascenders for specific service in the local universe plan of mortal ascension. There are both practical reasons and sentimental associations connected with these special resurrections.

49:6.3 (568.6)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 inhabited world, many are called to the mansion spheres at the special and the millennial resurrections, but most survivors are repersonalized at the inauguration of a new dispensation associated with the advent of a divine Son of planetary service.

49:6.4 (568.7) 1. *Mortals of the dispensational or group order of survival.* With the arrival of the first Adjuster on an inhabited world the guardian seraphim also make their appearance; they are indispensable to terrestrial escape. Throughout the life-lapse period of the sleeping survivors the spiritual values and eternal realities of their newly evolved and immortal souls are held as a sacred trust by the personal or by the group guardian seraphim.

49:6.5 (568.8) The group guardians of assignment to the sleeping survivors always function with the judgment Sons on their world advents. "He shall send his angels, and they sha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With each seraphim of assignment to the repersonalization of a sleeping mortal there functions the returned Adjuster, the same immortal Father fragment that lived in him during the days in the flesh, and thus is identity restored and personality resurrected. During the sleep of their subjects these waiting Adjusters serve on Divinington; they never indwell another mortal mind in this interim.

49:6.6 (569.1) While the older worlds of mortal existence harbor those highly developed and exquisitely spiritual types of human beings who are virtually exempt from the morontia life, the earlier ages of the animal-origin races are characterized by primitive mortals who are so immature that fusion with their Adjusters is impossible. The reawakening of these mortals is accomplished by the guardian seraphim in conjunction with an individualized portion of the immortal spirit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49:6.7 (569.2) Thus are the sleeping survivors of a planetary age repersonalized in the dispensational roll calls. But with regard to the nonsalvable personalities of a realm, no immortal spirit is present to function with the group guardians of destiny, and this constitutes cessation of creature existence. While some of your records have pictured these events as taking place on the planets of mortal death, they all really occur on the mansion worlds.

49:6.8 (569.3) 2. *Mortals of the individual orders of*

의 개별적 진보는 일곱 조화우주 순환계들에 대한 그들의 연속적 달성과 횡단(숙달)에 의해 측정된다. 필사 진보의 이 순환계들은 연관된 지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조화우주-통찰력 가치들의 차원들이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서 시작하면서, 필사자들은 첫 번째를 향해 분투하며, 세 번째를 달성한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을 즉시 갖는다. 이들 필사자들은 섭리적 또는 다른 심판들과는 무관하게 모론시아 삶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될 것이다.

진화하는 세계의 초기 시대들에 두루, 소수의 필사자들만이 세 번째 날에 심판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적인 운명의 수호자들이 발전하는 필사자들에게 배정되며, 그리하여 진화하는 이 창조체들의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가 자연적인 죽음 이후 세 번째 날에 첫 번째 맨션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그러한 경우에 조절자의 귀환이 인간 혼의 깨어남을 의미하며, 진화 세계들에서 섭리의 끝에 한 묶음으로 호출이 이루어질 때와 아주 똑같이 죽은 자들의 재(再)개인성구현이다.

개별적인 상승자들의 세 집단들이 있다: 덜 진보된 자들은 시작되는 또는 첫 번째 맨션세계에 도착한다. 더 진보된 집단은 이전의 행성 진보에 따라 중간 맨션세계들 중 어느 곳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계층들의 가장 진보된 자들은 실제로 일곱 번째 맨션세계에서 그들의 모론시아 체험을 시작한다.

3. 상승의 보호관찰-의존 계층의 필사자. 조절자의 도착은 우주의 견지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며, 모든 내주되는 존재는 공의의 점호를 받는다.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의 일시적인 삶은 불확실하며, 많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선택하기 전에 어려서 죽는다. 조절자가 내주하였던 그러한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가장 진보된 영적 지위의 부모를 따라가며, 그리하여 특별 부활에서 또는 정기적인 1,000년마다의 그리고 섭리의 점호시기에, 사흘째 되는 날, 체계의 최종자 세계(보호관찰 유아원)로 간다.

생각 조절자를 소유하기에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느 한 부모가 맨션세계들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체계들의 최종자 세계에서 재(再)개인성구현 된다. 아이는 필사자로 탄생하면서 물리적 실존개체를 얻지만, 생존의 사실에서 본다면, 조절자가 없는 모든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들에게 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때가 되면 생각 조절자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내주하기 위하여 오며, 반면에 생존의 보호관찰-의존 계층들의 두 집단들에 대한 세라핌천사 사명 활동은 더욱 진보된 부모의 그것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또는 한 쪽만이 생존되는 부모의 그것과

ascension. The individual progress of human beings is measured by their successive attainment and traversal (mastery) of the seven cosmic circles. These circles of mortal progression are levels of associated intellectual, social, spiritual, and cosmic-insight values. Starting out in the seventh circle, mortals strive for the first, and all who have attained the third immediately hav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assigned to them. These mortals may be repersonalized in the morontia life independent of dispensational or other adjudications.

49:6.9 (569.4)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 evolutionary world, few mortals go to judgment on the third day. But as the ages pass, more and more th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are assigned to the advancing mortals, and thus increasing numbers of these evolving creatures are repersonalized on the first mansion world on the third day after natural death. On such occasions the return of the Adjuster signalizes the awakening of the human soul, and this is the repersonalization of the dead just as literally as when the en masse roll is called at the end of a dispensati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49:6.10 (569.5) There are three groups of individual ascenders: The less advanced land on the initial or first mansion world. The more advanced group may take up the morontia career on any of the intermediate mansion worlds in accordance with previous planetary progression. The most advanced of these orders really begin their morontia experience on the seventh mansion world.

49:6.11 (569.6) 3. *Mortals of the probationary-dependent orders of ascension.* The arrival of an Adjuster constitutes identity in the eyes of the universe, and all indwelt beings are on the roll calls of justice. But temporal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is uncertain, and many die in youth before choosing the Paradise career. Such Adjuster-indwelt children and youths follow the parent of most advanced spiritual status, thus going to the system finaliter world (the probationary nursery) on the third day, at a special resurrection, or at the regular millennial and dispensational roll calls.

49:6.12 (570.1) Children who die when too young to have Thought Adjusters are repersonalized on the finaliter world of the local systems concomitant with the arrival of either parent on the mansion worlds. A child acquires physical entity at mortal birth, but in the matter of survival all Adjusterless children are reckoned as still attached to their parents.

49:6.13 (570.2) In due course Thought Adjusters come to indwell these little ones, while the seraphic ministry to both groups of the probationary-dependent orders of survival is in general similar to that of the more advanced

일치한다. 세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수호자들이 주어진다.

비슷한 시험 유아원들이 상승자들의 1차 그리고 2차 수정된 계층들의 조절자 없는 자녀들을 위해 우주 본부와 별자리의 최종자 구체 위에 유지되고 있다.

4. 상승의 2차 변경 계층의 필사자. 이들은 중간에 있는 진화 세계들의 진보하는 인간 존재들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일곱 맨션세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미진한 완전집단은, 맨션세계들만을 지나쳐서, 그들의 지역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난다. 중간에 있는 집단들은 별자리 훈련 세계들로 가며; 그들은 지역체계의 전체 모론시아 체계를 지나친다. 영적 분투의 행성 세월에 있어서 더욱 멀리 나아가면, 많은 생존자들은 별자리 본부에서 깨어나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 집단 중 어느 하나라도 전진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지나친 세계들에 강사로서 되돌아가야만 하며, 그들이 학생으로서는 지나친 그 영역들에서 선생들로서 많은 체험들을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그 다음에 필사자 진보의 규정된 경로들에 의해 파라다이스로 나아간다.

5. 상승의 1차 변경 계층의 필사자. 이들 필사자들은 진화적 생명의 조절자-융합 유형에 속하지만, 그들은 매우 종종 진화하는 세계에서의 인간 발달의 최종적 위상들을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아들이 잡아채는 것에 몸을 맡기며;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되어 지역우주의 본부의 주권자 아들 현존 안에 즉시 나타난다.

이들은 필사자 삶 동안 그들의 조절자들과 융합된 필사자들이며, 그러한 조절자-융합 개인성들은 모론시아 형체들을 입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건너간다. 이들 융합 혼들은 조절자의 직접 이동에 의해 보다 높은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실로 가며, 그곳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도착하는 다른 모든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최초 모론시아 의상을 받아들인다.

필사자 상승의 이 1차 변경 계층은 조절자-융합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떤 행성 계열에서든지 개별존재들에게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신성한 아들의 수많은 머무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뒤에 이들 구체들 가운데 더욱 오래된 곳에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

parent or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parent in case only one survives. Those attaining the third circle,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ir parents, are accorded personal guardians.

49:6.14 (570.3) Similar probation nurseries are maintained on the finaliter spheres of the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Adjusterless children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modified orders of ascenders.

49:6.15 (570.4) 4. *Mortals of the secondary modified orders of ascension.* These are the progressive human beings of the intermediate evolutionary worlds. As a rule they are not immune to natural death, but they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the seven mansion worlds.

49:6.16 (570.5) The less perfected group reawaken on the headquarters of their local system, passing by only the mansion worlds. The intermediate group go to the constellation training worlds; they pass by the entire morontia regime of the local system. Still farther on in the planetary ages of spiritual striving, many survivors awaken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there begin the Paradise ascent.

49:6.17 (570.6) But before any of these groups may go forward, they must journey back as instructors to the worlds they missed, gaining many experiences as teachers in those realms which they passed by as students. They all subsequently proceed to Paradise by the ordained routes of mortal progression.

49:6.18 (570.7) 5. *Mortals of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ascension.* These mortals belong to the Adjuster-fused type of evolutionary life, but they are most often representative of the final phases of human development on an evolving world. These glorified beings are exempt from passing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they are submitted to Son seizure; they are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and appear immediately in the presence of the Sovereign Son on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49:6.19 (570.8) These are the mortals who fuse with their Adjusters during mortal life, and such Adjuster-fused personalities traverse space freely before being clothed with morontia forms. These fused souls go by direct Adjuster transit to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higher morontia spheres, where they receive their initial morontia investiture just as do all other mortals arriving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49:6.20 (570.9) This primary modified order of mortal ascension may apply to individuals in any of the planetary series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stages of the Adjuster-fusion worlds, but it more frequently functions on the older of these spheres after they have received the benefits of numerous sojourns of the divine Sons.

빛과 생명의 행성 시대가 이루어짐과 함께, 많은 이들이 전환의 1차 변경 계층으로 우주 모론시아 세계들로 많이 간다. 안정된 실존의 진보된 단계들을 더 따라가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들의 대부분이 이 부류에 포용될 때, 행성은 이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적인 죽음은 오랫동안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이들 구체들에서 점점 덜 자주 일어나게 된다.

[행성 관리-행정의 예루셈 학교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49:6.21 (570.10)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etary era of light and life, many go to the universe morontia worlds by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translation. Further along in the advanced stages of settled existence, when the majority of the mortals leaving a realm are embraced in this class, the planet is regarded as belonging to this series. Natural death becomes decreasingly frequent on these sphere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49:6.22 (57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the Jerusem School of Planetary Administration.]

제 50 편 행성 영주

⇨ 049

유랜시아 책

051 ⇨

부 II. 지역우주

제 50 편 행성 영주

섹션

소개

제 1 장. 영주들의 임무

제 2 장. 행성의 관리-행정

제 3 장. 영주의 유형 참모진

제 4 장. 행성 본부와 학교

제 5 장. 진보적인 문명달성

제 6 장. 행성 문화

제 7 장. 고립에 대한 보상

PAPER 50

THE PLANETARY PRINCES

SECTIONS

Introduction

1. Mission of the Princes

2. Planetary Administration

3. The Prince's Corporeal Staff

4. The Planetary Headquarters and Schools

5. Progressive Civilization

6. Planetary Culture

7. The Rewards of Isolation

소개

행성영주들은, 라노난텍 아들들의 계층에 속하지만 한편, 봉사에 있어서 너무나 특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다른 집단으로 간주된다. 그들의 멜기세덱이 2차 라노난텍들임을 증명한 후에, 이들 지역우주 아들들은 별자리 본부에 있는 그들 계층의 예비자들에 배정된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체계 주권자에 의해 다양한 임무에 배정되며 결국에는 행성영주들로 임명되고 진화하는 거주 세계들을 다스리도록 보내진다.

주어진 행성에 한 통치자를 배정하는 문제에서 체계 주권자에게 행동하도록 하는 신호는, 생명운반자들이 생명을 확립시키고 진화하는 지능존재들을 개발시킨 이 행성에, 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한 허락이다. 진화하는 필사 창조체들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들은 아들관계를 갖는 이 계층의 한 행성 통치자를 그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INTRODUCTION

50:0.1 (572.1) WHILE belonging to the order of Lanonandek Sons, the Planetary Princes are so specialized in service that they are commonly regarded as a distinct group. After their Melchizedek certification as secondary Lanonandeks, these local universe Sons are assigned to the reserves of their order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From here they are assigned to various duties by the System Sovereign and eventually commissioned as Planetary Princes and sent forth to rule the evolving inhabited worlds.

50:0.2 (572.2) The signal for a System Sovereign to act in the matter of assigning a ruler to a given planet is the reception of a request from the Life Carriers for the dispatch of an administrative head to function on this planet whereon they have established life and developed intelligent evolutionary beings. All planets which are inhabited by evolutionary mortal creatures have assigned to them a planetary ruler of this order of sonship.

제 1 장. 영주들의 임무

1. MISSION OF THE PRINCES

행성영주와 그의 보좌관 형제는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시간과 공간의 낮은 계층의 창조체들을 만들 수 있는 (육신화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게 개인성구현된 접근 상태를 나타낸다. 정말로, 창조자 아들은 자신의 영을 통하여 영역들의 창조체들과 접촉하지만, 행성영주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와서 사람 자녀들에게로 뻗어 나가는 개인적 아들들의 마지막 계층들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의 수호자들 그리고 다른 천사 존재들의 개인들로서 매우 가까이 접근 한다; 우주 아버지는 신비 감시자들의 전(前)개인적 현존에 의해 사람 안에 거주하지만; 행성영주는 너희에게 다가가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최종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새롭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행성영주는 완성된 신성(神性)의 독점적 대표자인데, 창조자 아들(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자손)과 신성한 사명활동자(무한한 영의 우주 딸)로부터 생긴다.

새롭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영주는 조력자들과 보좌관들의 충성스러운 무리에 의해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명활동하는 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세계들의 감독하는 무리단은 행성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납득하고 그것들에 대해 태생적으로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체계의 행정-관리자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진화 세계들을 위한 동정심 있는 통치 권한을 제공하려는 이 노력 전체는, 인간에 가까운 이 개인성들이 최극 통치자들의 뜻위로 높이 그들 자신의 마음들을 고양시킴으로써 빛나갈 수도 있다.

개별 행성들에서 신성의 대표자들로서 오직 홀로 있을 때, 이들 아들들은 혹독하게 시험을 받으며, 네바돈은 여러 차례의 불행한 반역들을 겪어 왔다. 체계 주권자들과 행성영주들의 창조가 있을 때 우주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아들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개념의 개인성구현이 발생하며, 한 존재의 자아-중요성으로서의 균형 감각을 잃는 점증되는 위험과 수많은 계층의 신성의 존재들과 그들의 권한의 등급에 대한 가치들과 관계들을 계속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더 큰 실패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아버지가 지역우주에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 아들들 전체에 대한 일정한 신앙과 충성심의 시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을 조직하고 관리-운영하는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 이 세계 영주들이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은 물질아들들의 이어지는 사명활동을 크게 촉진시키는데, 그들은 세계들의 원시인들에게 보다 높은 형태의 창조체 삶을 주입시키기 위해 온다. 그들의 통치는 또한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위해 행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 후에 세계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적인 섭리시대들을 개시하기 위해 온다.

50:1.1 (572.3)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assistant brethren represent the nearest personalized approach (aside from incarnation) that the Eternal Son of Paradise can make to the lowly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rue, the Creator Son touches the creatures of the realms through his spirit, but the Planetary Prince is the last of the orders of personal Sons extending out from Paradise to the children of men. The Infinite Spirit comes very near in the persons of the guardians of destiny and other angelic beings; the Universal Father lives in man by the prepersonal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s; but the Planetary Prince represents the last effort of the Eternal Son and his Sons to draw near you. On a newly inhabited world the Planetary Prince is the sole representative of complete divinity, springing from the Creator Son (the offspring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e Divine Minister (the universe Daughter of the Infinite Spirit).

50:1.2 (572.4) The prince of a newly inhabited world is surrounded by a loyal corps of helpers and assistants and by large numbers of the ministering spirits. But the directing corps of such new worlds must be of the lower orders of the administrators of a system in order to be innately sympathetic with, and understanding of, the planetary problems and difficulties. And all of this effort to provide sympathetic rulership for the evolutionary worlds entails the increased liability that these near-human personalities may be led astray by the exaltation of their own minds over and above the will of the Supreme Rulers.

50:1.3 (572.5) Being quite alone as representatives of divinity on the individual planets, these Sons are tested severely, and Nebadon has suffered the misfortune of several rebellions. In the creation of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lanetary Princes there occurs the personalization of a concept that has been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and there is an increasing danger of losing the sense of proportion as to one's self-importance and a greater likelihood of failure to keep a proper grasp of the values and relationships of the numerous orders of divine beings and their gradations of authority. That the Father is not personally present in the local universe also imposes a certain test of faith and loyalty on all these Sons.

50:1.4 (573.1) But not often do these world princes fail in their missions of organizing and administering the inhabited spheres, and their success greatly facilitates the subsequent missions of the Material Sons, who come to engraft the higher forms of creature life on the primitive men of the worlds. Their rule also does much to prepare the planets for the Paradise Sons of God, who subsequently come to judge the worlds and to inaugurate successive dispensations.

제 2 장. 행성의 관리-행정

모든 행성영주들은 가브리엘, 미가엘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우주 행정-관리적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반면, 직접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그들이 체계 주권자들의 집행적 명령에 종속된다.

행성영주들은 언제든지 멜기세덱들의 조언, 그들의 이전(以前) 강사들 그리고 후원자들의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독단적으로 요청되지는 않으며, 만일 그러한 도움이 자발적으로 요청되지 않았다면, 멜기세덱들은 행성의 관리-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계 통치자들은 24명의 조언자들의 충고를 따를 수도 있는데, 체계의 중여 세계들로부터 소집된다. 사타니아에서는 현재 이 조언자들이 모두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별자리 본부에 있는 비슷한 70인 협의회 역시 영역들의 진화적 존재들로부터 선택된다.

그들의 초기 그리고 정착되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의 진화적 행성들의 규칙은 주로 독단적이다. 행성영주들은 그들의 행성 도움자 무리단 가운데로부터 그들의 특별한 보좌관들의 집단들을 조직한다. 그들은 대개 12명의 최고협의회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것은 다양하게 선택되었고 다른 세계들에 다양하게 임명되어 있다. 또한 한 행성영주는 아들관계를 갖는 자기 자신의 집단의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그리고 특정한 세계들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계층 중 한 명, 한 명의 2차 라노난덱 연관-동료를 보좌관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한 세계 통치자의 전체 참모진은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과 특정한 유형의 비교적 높게 진화된 존재들 그리고 다른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된다. 그러한 참모진은 평균적으로 약 1,000명이며, 그 행성이 진보하면, 이 조력자 무리단은 10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다. 더 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느 때든지, 행성영주들이 그들의 형제들, 체계 주권자들에게 요청만 하면 되며, 청원은 즉시 실행된다.

행성들은 본성, 조직 그리고 관리-행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지만, 전체는 공의(公義)의 법정들을 위해 준비한다. 지역우주의 사법 체계는 행성영주의 법정에서 기원되는데, 그것은 그의 개인적 참모진의 한 성원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한 법정들의 판결들은 상당히 아버지답고 그리고 사려깊은 분별이 있는 태도를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의 규제를 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들은 더 높은 법정에게 청원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주의 세계 권역에서의 사건들은 주로 영주의 개인적인 사려 깊은 분별력에 따라 조절된다.

2. PLANETARY ADMINISTRATION

50:2.1 (573.2) All Planetary Princes are under the univers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Gabriel, the chief executive of Michael, while in immediate authority they are subject to the executive mandates of the System Sovereigns.

50:2.2 (573.3) The Planetary Princes may at any time seek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their former instructors and sponsors, but they are not arbitrarily required to ask for such assistance, and if such aid is not voluntarily requested, the Melchizedeks do not interfere with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These world rulers may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advice of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assembled from the bestowal worlds of the system. In Satania these counselors are at present all natives of Urantia. And there is an analogous council of seventy at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lso selected from the evolutionary beings of the realms.

50:2.3 (573.4) The rule of the evolutionary planets in their early and unsettled careers is largely autocratic. The Planetary Princes organize their specialized groups of assistants from among their corps of planetary aids. They usually surround themselves with a supreme council of twelve, but this is variously chosen and diversely constituted on the different worlds. A Planetary Prince may also have as assistants one or more of the third order of his own group of sonship and sometimes, on certain worlds, one of his own order, a secondary Lanonandek associate.

50:2.4 (573.5) The entire staff of a world ruler consists of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certain types of higher evolved beings and ascending mortals from other worlds. Such a staff averages about one thousand, and as the planet progresses, this corps of helpers may be increased up to one hundred thousand or more. At any time need is felt for more helpers, the Planetary Princes have only to make request of their brothers, the System Sovereigns, and the petition is granted forthwith.

50:2.5 (573.6) Planets vary greatly in nature and organization and in administration, but all provide for tribunals of justice. The judicial system of the local universe has its beginnings in the tribunals of a Planetary Prince, which are presided over by a member of his personal staff; the decrees of such courts reflect a highly fatherly and discretionary attitude. All problems involving more than the regulation of the planetary inhabitants are subject to appeal to the higher tribunals, but the affairs of his world domain are largely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discretion of the prince.

화해자들의 이동 위원회들이 행성 법정들을 돕고 보충해 주며, 영 통제자와 물리통제자 둘 모두가 이들 화해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른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의 승낙 없이 독단적인 집행이 수행되는 일은 결코 없는데, 왜냐하면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들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행성 임무의 통제자들 그리고 변환자들 역시 후자의 이 개인성들로 하여금 필사 창조체들에게 보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천사들 그리고 다른 계층의 천사의 존재들과 함께 협동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라핌천사 조력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멜기세덱들은 진화 세계들의 거주민들에게 자신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행성영주의 참모진의 일부분으로서 체계 본부로 부터 필사자 상승자들을 데려오는 주요 이유는 영역의 거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제 3 장. 영주의 유형 참모진

나이 어린 세계로 감에 있어서, 행성영주는 지역체계 본부로부터 상승하는 자발적 존재들의 한 집단을 대개 데리고 간다. 이들 상승자들은 초기 종족 개량의 작업에 있어서 충고자들과 조력자들로서 영주를 따라간다. 이들 육체적 조력자들의 무리단은 영주와 세계 종족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를 구성한다. 유란시아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는 100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조력자들의 무리단을 가졌었다.

그러한 자발적 보좌관들은 한 체계 본부의 시민들이며,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결합되지 않았다. 그러한 자발적 봉사자들의 조절자들의 지위는 이 모론시아 진보자들이 일시적으로 이전(以前)의 물질적 상태로 되돌아간 동안 체계 본부에서 기다리는 거주지에 남아 있다.

형태의 고안건축가들인 생명운반자들이 그러한 자원자들에게 새로운 물질적 몸체들을 제공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차지한다. 이 개인성 형태들은, 영역들의 일반적 질병들로부터 면역되어 있는 반면, 초기 모론시아 몸체들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특성의 특정한 우연한 현상들의 지배를 받는다.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두 번째 아들이 구체에 도착하였을 때 그 다음 판결과 관련하여 행성으로부터 대개 떠나게 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공동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정한 우월한 토착 자원자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임무들을 부여한다. 영주의 이 조력자들이 토착 종족들 중에서 뛰어난 집단들과 결혼하도록 허락을 받은 세계들에서, 그러한 자녀들은 대개 그들의 후임자가 된다.

행성영주에 대한 이들 보좌관들은 세계 종족

50:2.6 (574.1) The roving commissions of conciliators serve and supplement the planetary tribunals, and both spirit and physical controllers are subject to the findings of these conciliators. But no arbitrary execution is ev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stellation Father, for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50:2.7 (574.2) The controllers and transformers of planetary assignment are also able to collaborate with angels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 rendering these latter personalities visible to mortal creatures. On special occasions the seraphic helpers and even the Melchizedeks can and do make themselves visible to the inhabitant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principal reason for bringing mortal ascenders from the system capital as a part of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i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 inhabitants of the realm.

3. THE PRINCE'S CORPOREAL STAFF

50:3.1 (574.3) On going to a young world, a Planetary Prince usually takes with him a group of volunteer ascending beings from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These ascenders accompany the prince as advisers and helpers in the work of early race improvement. This corps of material helpers constitute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the prince and the world races. The Urantia Prince, Caligastia, had a corps of one hundred such helpers.

50:3.2 (574.4) Such volunteer assistants are citizens of a system capital, and none of them have fused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The status of the Adjusters of such volunteer servers remains as of the residential standing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ile these morontia progressors temporarily revert to a former material state.

50:3.3 (574.5) The Life Carriers, the architects of form, provide such volunteers with new physical bodies, which they occupy for the periods of their planetary sojourn. These personality forms, while exempt from the ordinary diseases of the realms, are, like the early morontia bodies, subject to certain accidents of a mechanical nature.

50:3.4 (574.6) The prince's corporeal staff are usually removed from the planet in connection with the next adjudication at the time of the second Son's arrival on the sphere. Before leaving, they customarily assign their various duties to their mutual offspring and to certain superior native volunteers. On those worlds where these helpers of the prince have been permitted to mate with the superior groups of the native races, such offspring usually succeed them.

50:3.5 (574.7) These assistants to the Planetary

들과 결혼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들 안에서 결혼한다. 두 부류의 존재들이 이들 연합들로부터 발생 된다: 아담과 이브의 도착 시에 그들의 부모들이 행성으로부터 떠나게 된 후에 영주의 참모진에게 계속 배정되어 있는 1차 유형의 중도 창조체들 그리고 특정한 높은 유형의 물질적 존재들. 이 자녀들은 특별한 응급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필사 종족들과 결혼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직 행성영주의 지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유형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들의 시대와 세대의 우월한 종족 상태에 있다. 행성영주의 이들 반(半)물질 조력자들의 자손들 전체에게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

영주의 통치가 끝날 때, 이 “복귀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의 재개를 위해 체계 본부로 되돌아 갈 때가 되었을 때, 이 상승자들은 그들의 물질적 육신들을 양도할 목적으로 생명운반자들에게 온다. 그들은 변환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들의 필사자 수여로부터 해방되어 깨어나 모른시아 형태들을 부여받는데, 체계 본부로 돌아가는 세라핌천사 운송을 위해 준비를 갖추며, 그곳에서 그들의 분리된 조절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예루셈 계층 보다 전반적으로 한 세대를 뒤쳐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독특하고도 비범한 체험,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진귀한 장(章)을 획득하였다.

제 4 장. 행성 본부와 학교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일찍부터 훈련과 문화의 행성 학교들을 조직하는데, 그곳에서 진화적 종족들 중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민족에게 더 나은 이 방법들을 가르치도록 파견된다. 영주의 이 학교들은 행성의 물질적 본부에 위치한다.

이 본부 도시의 설립과 관련된 물질적 작업의 대부분은 유형 참모진에 의해 수행된다. 행성영주의 초기 시대의 그러한 본부 도시들, 또는 정착지들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매우 다르다. 그것들은 후기 시대들과 비교할 때 단순한데, 그 특징은 광물 장식과 비교적 진보된 물질적 구조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정원 본부 주위에 중심을 두는 아담의-통치체제와 반대편에서 있는데, 종족들을 위한 그들의 활동은 우주 아들들의 두 번째 세대 동안 그것으로부터 추진된다.

너희 세계에 있는 본부 정착지에서 모든 인간 주택이 풍부한 땅과 함께 제공되었다. 비록 멀리

Prince seldom mate with the world races, but they do always mate among themselves. Two classes of beings result from these unions: the primary type of midway creatures and certain high types of material beings who remain attached to the prince's staff after their parents have been removed from the planet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ese children do not mate with the mortal races except in certain emergencies and then only by direction of the Planetary Prince. In such an event, their children — the grandchildren of the corporeal staff — are in status as of the superior races of their day and generation. All the offspring of these semimaterial assistant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Adjuster indwelt.

50:3.6 (575.1) At the end of the prince's dispensation, when the time comes for this “reversion staff” to be returned to the system headquarters for the resumption of the Paradise career, these ascenders present themselves to the Life Carriers for the purpose of yielding up their material bodies. They enter the transition slumber and awaken delivered from their mortal investment and clothed with morontia forms, ready for seraphic transportation back to the system capital, where their detached Adjusters await them. They are a whole dispensation behind their Jerusem class, but they have gained a unique and extraordinary experience, a rare chapter in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4. THE PLANETARY HEADQUARTERS AND SCHOOLS

50:4.1 (575.2) The prince's corporeal staff early organize the planetary schools of training and culture, wherein the cream of the evolutionary races are instructed and then sent forth to teach these better ways to their people. These schools of the prince are located at the material headquarters of the planet.

50:4.2 (575.3) Much of the physical work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is headquarters city is performed by the corporeal staff. Such headquarters cities, or settlements, of the early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very different from what a Urantia mortal might imagine. They are, in comparison with later ages, simple, being characterized by mineral embellishment and by relatively advanced material construction. And all of this stands in contrast with the Adamic regime centering around a garden headquarters, from which their work in behalf of the races is prosecuted during the second dispensation of the universe Sons.

50:4.3 (575.4) In the headquarters settlement on your world every human habitation was provided with

있는 부족들이 계속 사냥을 하고 음식을 찾아다녔지만, 영주의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들은 모두 농업과 원예에 종사하였다. 시간은 다음과 같은 일들 사이에서 거의 똑같이 분배되었다.

1. 육체적 노동. 땅 경작, 집을 짓고 장식하는 것과 연관됨.

2. 사회적 활동. 여흥과 문화적인 사회적 배치를 이룸.

3. 교육적 적용. 특별하게 마련된 계층 훈련으로 보충된, 가족-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지도.

4. 직업 훈련. 결혼과 가정 설립의 학교들, 예술 그리고 공작 훈련 학교들, 그리고 선생들 훈련을 위한 학교들—세속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5. 영적 문화. 선생 형제신분, 소년과 청년 집단들의 깨우침, 그리고 입양된 토착민 아이들을 그들 민족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훈련.

행성영주는 필사 존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참모진의 반 물질적 존재들이 묘사한 것을 믿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다. 그러나 문화와 훈련의 이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들에 잘 맞추어져 있으며, 이 다양한 배움의 기관들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사람 종족들 사이의 예민하고도 칭찬할만한 경쟁이 곧 개발된다.

그러한 문화와 성취의 세계 중심지로부터, 진화적 종족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환시키는 고양시키고 개화시키는 영향이 온 민족들에게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영주의 학교들에 받아들여지고 교육을 받았던 주변의 민족들 중 교양 있고 영성화 된 자녀들이 자신들의 선천적 집단들에게 되돌아가고 그들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동안, 그들이 영주의 학교들의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배움과 문화의 새롭고도 유능한 중심지들이 거기에 계속 세워진다.

유란시아에서는 행성 진보와 문화적 증진을 위한 이 계획들이 잘 수행되어 가장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는데, 모든 일들은 루시퍼 반란에 대한 칼리가스티아의 지지에 의해 다소 갑작스럽고도 가장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와 동일한 계층의 아들관계에 속하는 존재, 칼리가스티아의 냉담한 배반을 알게 된 일은 나에게 있어서 이 반역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였으며, 그는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악하게 모의된 생각을 품고, 조직적으로 교훈을 왜곡시켰으며 그 당시 운영되는 유란시아 행성 학교들 전체에 제공되던 가르침을 오염시켰다. 이들 학교의 파멸은 빠르고도 완벽하였다.

abundance of land. Although the remote tribes continued in hunting and food foraging, the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Prince's schools were all agriculturists and horticulturists. The time was about equally divided between the following pursuits:

50:4.4 (575.5) 1. *Physical labor.* Cultivation of the soil, associated with home building and embellishment.

50:4.5 (575.6) 2. *Social activities.* Play performances and cultural social groupings.

50:4.6 (575.7) 3. *Educational application.* Individual instruction in connection with family-group teaching, supplemented by specialized class training.

50:4.7 (575.8) 4. *Vocational training.* Schools of marriage and homemaking, the schools of art and craft training, and the classes for the training of teachers — secular, cultural, and religious.

50:4.8 (575.9) 5. *Spiritual culture.* The teacher brotherhood, the enlightenment of childhood and youth groups, and the training of adopted native children as missionaries to their people.

50:4.9 (575.10) A Planetary Prince is not visible to mortal beings; it is a test of faith to believe the representations of the semimaterial beings of his staff. But these schools of culture and training are well adapted to the needs of each planet, and there soon develops a keen and laudatory rivalry among the races of men in their efforts to gain entrance to these various institutions of learning.

50:4.10 (575.11) From such a world center of culture and achievement there gradually radiates to all peoples an uplifting and civilizing influence which slowly and certainly transforms the evolutionary races. Meantime the educated and spiritualized children of the surrounding peoples who have been adopted and trained in the prince's schools are returning to their native groups and,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are there establishing new and potent centers of learning and culture which they carry on according to the plan of the prince's schools.

50:4.11 (576.1) On Urantia these plans for planetary progress and cultural advancement were well under way, proceeding most satisfactorily, when the whole enterprise was brought to a rather sudden and most inglorious end by Caligastia's adherence to the Lucifer rebellion.

50:4.12 (576.2) It was one of the most profoundly shocking episodes of this rebellion for me to learn of the callous perfidy of one of my own order of sonship, Caligastia, who, in deliberation and with malice aforethought, systematically perverted the instruction and poisoned the teaching provided in all the Urantia planetary schools in operation at that time. The wreck of these schools was speedy and complete.

영주의 물질화된 참모진의 상승자들의 자손들 대부분은 충성스럽게 남았는데, 칼리가스티아 계열에서 탈퇴하였다. 충성스러운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의 멜키세덱 접수자들에 의해 용기를 얻었으며, 그들의 후기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후손들은 진리와 정의(正義)에 대한 행성 개념을 지탱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충성스러운 이 전도자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에서의 영적인 진리 전체가 소멸되는 것을 막도록 도움을 주었다. 용감한 이 혼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지식을 보존하였고 신성한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계속적인 행성 세대들에 대한 개념을 세계 종족들을 위해 보존하였다.

제 5 장. 진보적인 문명달성

거주되는 세계들의 충성스러운 영주들은 그들의 기원적 임무에 해당하는 행성에 영월하게 배속된다. 파라다이스 아들과 그들의 세대들은 왔다 갈 수 있지만, 성공적인 행성영주는 자신의 영역에 대한 통치자로서 계속된다. 그의 업무는 더욱 높은 아들들의 임무들과 전혀 독립되어 있는데, 행성 문명화의 발전을 육성하도록 고안되었다.

문명의 진보는 어떤 두 행성에서도 거의 같지 않다. 필사자 진화에 대한 설명의 내용들은 수많은 다른 세계들에서 매우 다르다. 물리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계통들에 따른 행성 발달의 이 많은 다양성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화 세계들은 잘 정의(定意)된 어떤 방향들 속에서 진보한다.

행성영주의 친절한 통치 아래에서, 물질아들들에 의해 증강되고 파라다이스 아들의 주기적 임무들에 의해 구분되면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필사 종족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발전의 신(新)시대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1. 영양 섭취 신(新)시대. 인간-이전(以前)종의 창조체들과 원시인의 여명기 종족들은 주로 식량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진화하는 존재들은 먹이를 찾거나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싸우는 일에 그들의 깨어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 식량 탐색은 이들 다음 문명의 초기 선조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2. 보호안전 시기. 원시 사냥꾼들이 먹이를 탐색하는 일로부터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즉시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증강시키는 일에 이 여가시간을 보낸다.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싸우는 기법에 투자된다. 거주지가 점점 더 보강되고, 동족들은 상호적 두려움에 의해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대한 미움을 가르쳐줌으로써 굳어진다. 자아-영속은 자아-유지를 항상 뒤따르는 일이다.

3. 물질적-위로 시대. 식량 문제들이 부분적으

50:4.13 (576.3) Many of the offspring of the ascenders of the Prince's materialized staff remained loyal, deserting the ranks of Caligastia. These loyalists were encouraged by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and in later times their descendants did much to uphold the planetary concept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he work of these loyal evangelists helped to prevent the total obliteration of spiritual truth on Urantia. These courageous souls and their descendants kept alive some knowledge of the Father's rule and preserved for the world races the concept of the successive planetary dispensations of the various orders of divine Sons.

5. PROGRESSIVE CIVILIZATION

50:5.1 (576.4) The loyal princes of the inhabited worlds ar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lanets of their original assignment. Paradise Sons and their dispensations may come and go, but a successful Planetary Prince continues on as the ruler of his realm. His work is quite independent of the missions of the higher Sons, being 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planetary civilization.

50:5.2 (576.5)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s hardly alike on any two planets. The details of the unfoldment of mortal evolution are very different on numerous dissimilar worlds. Notwithstanding these many diversifications of planetary development along physical, intellectual, and social lines, all evolutionary spheres progress in certain well-defined directions.

50:5.3 (576.6) Under the benign rule of a Planetary Prince, augmented by the Material Sons and punctuated by the periodic missions of the Paradise Sons, the mortal races on an average world of time and space will successively pass through the following seven developmental epochs:

50:5.4 (576.7) 1. *The nutrition epoch.* The prehuman creatures and the dawn races of primitive man are chiefly concerned with food problems. These evolving beings spend their waking hours either in seeking food or in fighting, offensively or defensively. The food quest is paramount in the minds of these early ancestors of subsequent civilization.

50:5.5 (576.8) 2. *The security age.* Just as soon as the primitive hunter can spare any time from the search for food, he turns this leisure to augmenting his security. More and more attention is devoted to the technique of war. Homes are fortified, and the clans are solidified by mutual fear and by the inculcation of hate for foreign groups. Self-preservation is a pursuit which always follows self-maintenance.

50:5.6 (577.1) 3. *The material-comfort era.* After food

로 해결되어 왔고 어느 정도의 안전이 성취되어 온 후에, 추가적인 여가 시간이 개인적 안락을 위해 활용된다. 사치가 필요성과 함께 인간 활동들의 단계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인다. 그러한 시대는 횡포, 편협함, 탐욕 그리고 술 취함으로서 종종 특징 지워진다. 종족들의 나약함의 요소들은 과잉과 잔학으로 기울어진다. 이들 쾌락을 추구하는 허약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더욱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요소들에 의해 차츰차츰 정복된다.

4. 지식과 지혜의 추구. 식량, 안전, 쾌락, 그리고 여가는 문화발달과 지식확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지식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지혜를 가져오고, 문화가 체험에 의해 유익을 주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문명은 이미 실제적으로 도달되었다. 식량, 안전 그리고 물질적 편안함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많은 개별 존재들은 지식에 굶주리고 지혜를 갈망한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행함으로 배우는 기회가 제공 된다; 교육은 이들 시대의 표어이다.

5. 철학과 형제신분의 신(新)시대. 필사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으로서 유익을 얻기 시작할 때, 그들은 철학적으로 바뀌어 간다.—그들은 자신 속에서 이유를 생각해 내고 특징적인 판단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적이 되기 시작하며,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들은 참으로 도덕적 존재가 된다. 지혜로운 도덕적 존재들은 그러한 진보하는 세계에 인간 형제신분을 수립할 능력이 있다.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존재들은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6. 영적 분투의 시기.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육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 단계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만족과 조화우주 납득을 추구하도록 재촉하는 개인적 통찰력의 차원들을 곧 달성한다. 종교는 두려움과 미신의 감정적 권역들로부터 조화우주 지혜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높은 차원에 이르는 향상을 완성해 간다. 교육은 의미들의 달성을 열망하고 문화는 조화우주 관계들과 참된 가치들을 잡으려고 한다. 진화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진정으로 문화화 되었고, 참으로 교육되었으며, 지극하게 하느님을 안다.

7. 빛과 생명의 시대. 이것은 육신적 안전, 지적 확대,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의 계속적인 시대들의 개화기이다. 이 인간적 성취는 현재 우주적 합일과 사심-없는 봉사 속에 혼합되고 연관되며 조화-협동된다. 유한적 본성과 물질적 자질들의 한계를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이 우수하고 안정된 세계들에서 연속적으로 사는 진보하는 세대들에 의해 진화적 달성의 가능성이 속박되는 법이 없다.

problems have been partially solved and some degree of security has been attained, the additional leisure is utilized to promote personal comfort. Luxury vies with necessity in occupying the center of the stage of human activities. Such an age is all too often characterized by tyranny, intolerance, gluttony, and drunkenness. The weaker elements of the races incline towards excesses and brutality. Gradually these pleasure-seeking weaklings are subjugated by the more strong and truth-loving elements of the advancing civilization.

50:5.7 (577.2) 4. *The quest for knowledge and wisdom.* Food, security, pleasure, and leisure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spread of knowledge. The effort to execute knowledge results in wisdom, and when a culture has learned how to profit and improve by experience, civilization has really arrived. Food, security, and material comfort still dominate society, but many forward-looking individuals are hungering for knowledge and thirsting for wisdom. Every child 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learn by doing; education is the watchword of these ages.

50:5.8 (577.3) 5. *The epoch of philosophy and brotherhood.* When mortals learn to think and begin to profit by experience, they become philosophical — they start out to reason within themselves and to exercise discriminative judgment. The society of this age becomes ethical, and the mortals of such an era are truly becoming moral beings. Wise moral beings are capable of establishing human brotherhood on such a progressing world. Ethical and moral beings can learn how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golden rule.

50:5.9 (577.4) 6. *The age of spiritual striving.* When evolving mortals have passed through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ocial stages of development, sooner or later they attain those levels of personal insight which impel them to seek for spiritual satisfactions and cosmic understandings. Religion is completing the ascent from the emotional domains of fear and superstition to the high levels of cosmic wisdom and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Education aspires to the attainment of meanings, and culture grasps at cosmic relationships and true values. Such evolving mortals are genuinely cultured, truly educated, and exquisitely God-knowing.

50:5.10 (577.5) 7. *The era of light and life.* This is the flowering of the successive ages of physical security, intellectual expansion, social culture,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se human accomplishments are now blended, associated, and co-ordinated in cosmic unity and unselfish service. Within the limitations of finite nature and material endowments there are no bounds set upon the possibilities of evolutionary attainment by the advancing generations who successively live

세계 역사의 연속되는 세대들과 행성 진보의 발전하는 신(新)시대들에 두루 그들의 구체를 도와준 후에, 행성영주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승진된다.

제 6 장. 행성 문화

유란시아의 고립은 너희 사타니아 이웃들의 생명과 환경의 많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 발표들에서 우리는 행성의 격리와 그리고 체계의 고립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깨우치려는 모든 우리의 노력에서 이들 제약을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희는 평균적인 진화 세계의 진보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왔으며, 그리고 너희는 그러한 세계의 생애를 유란시아의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의 문명의 발달은 영적 고립의 불운을 겪어 온 다른 세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주의 충성스러운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 행성은 가장 혼동되어 있으며 지적 진보와 영적 달성의 모든 위상들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너희 행성의 불운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은 정상적인 세계의 문화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납득하는 데에 방해 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진화 세계들이, 아니 가장 이상적인 세계조차, 그곳에서의 삶이, 꽃으로 뒤덮인 안락한 침대의 구체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 종족들의 처음 삶은 항상 분투로서 이루어진다. 노력과 결정은 생존 가치들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문화는 마음의 본질특성을 전제로 한다; 문화는 마음이 상승되지 않으면 증진될 수 없다. 우수한 지성은 고귀한 문화를 추구할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길을 발견할 것이다. 열등한 마음은 그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제시할 때에도 가장 높은 문화를 거절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이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되는 사명에 달려있으며, 그들 해당되는 섭리시대의 세대들이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있다.

너희는 200,000년 동안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들이 루시퍼 반란 때문에 놀라시아텍의 영적 금지령 밑에서 정지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와 단절의 결과적 불이익을 회복하는 데에는 긴 시대가 요구된다. 너희의 세계는 반역의 행성영주와 불이행을 행한 물질아들의, 이중적 비극의 결과로서 불규칙적이고 변화가 많은 생애를 아직도 계속 뒤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것조차도 세

upon these supernal and settled worlds of time and space.

50:5.11 (577.6) After serving their spheres through successive dispensations of world history and the progressing epochs of planetary progress, the Planetary Princes are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s upon the inauguratio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6. PLANETARY CULTURE

50:6.1 (578.1) The isolation of Urantia renders it impossible to undertake the presentation of many details of the life and environment of your Satania neighbors. In these presentations we are limited by the planetary quarantine and by the system isolation. We must be guided by these restrictions in all our efforts to enlighten Urantia mortals, but in so far as is permissible, you have been instructed in the progress of an average evolutionary world, and you are able to compare such a world's career with the present state of Urantia.

50:6.2 (578.2)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on Urantia has not differed so greatly from that of other worlds which have sustained the misfortune of spiritual isolation. But when compared with the loyal worlds of the universe, your planet seems most confused and greatly retarded in all phases of intellectu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50:6.3 (578.3) Because of your planetary misfortunes, Urantians are prevented from understanding very much about the culture of normal worlds. But you should not envisage the evolutionary worlds, even the most ideal, as spheres whereon life is a flowery bed of ease. The initial life of the mortal races is always attended by struggle. Effort and decision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acquirement of survival values.

50:6.4 (578.4) Culture presupposes quality of mind; culture cannot be enhanced unless mind is elevated. Superior intellect will seek a noble culture and find some way to attain such a goal. Inferior minds will spurn the highest culture even when presented to them ready-made. Much depends, also, upon the successive missions of the divine Sons and upon the extent to which enlightenment is received by the ages of their respective dispensations.

50:6.5 (578.5) You should not forget that for two hundred thousand years all the worlds of Satania have rested under the spiritual ban of Norlatiadek in consequence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it will require age upon age to retrieve the resultant handicaps of sin and secession. Your world still continues to pursue an irregular and checkered career as a result of the double tragedy of a rebellious Planetary Prince and a defaulting Material Son. Even the bestowal of Christ Michael

계의 초기 관리-행정에 있었던 이들 심각한 실책의 현세적 결과들을 즉시 해결하지 않았다.

on Urantia did not immediately set aside the temporal consequences of these serious blunders in the earlier administration of the world.

제 7 장. 고립에 대한 보상

7. THE REWARDS OF ISOLATION

얼핏 생각할 때에는, 유란시아 및 그 연관된 고립 세계들이, 행성영주와 물질아들과 딸과 같은 그러한 초인간 개인성들의 유익한 현존과 영향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가장 불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구체의 고립은 그들 종족에게 신앙의 실천을 위한, 그리고 보이는 것이나 혹은 다른 어떤 물질적 고려사항에도 의존하지 않은 조화우주 신뢰성을 자신하는 그러한 특유한 본질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에는 반역의 결과로 고립된 세계에서 부름받으며 나오는 필사 창조체들이 지극히 행운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상승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앙과 숭고한 자신감이 사업의 성취에 필수가 되는 그러한 조화우주 과업에, 수없이 많이 특별한 배정으로 아주 일찍부터 맡겨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예루셈에서는 고립된 이들 세계로부터의 상승자들이 자신들의 거주구역에 차지하며 아곤돈터들로 알려져 있는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고립되었을 때 견디며, 그리고 홀로 있을 때라도 극복하기 어려움들에 승리하는 진화적 의지 창조체들을 의미한다. 아곤돈터들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은 지역우주의 상승과 초우주의 통과에 두루 지속된다; 그것은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사라지지만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 즉시 다시 나타나며 필사자 최종자 무리단에서 분명하게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최종자 지위를 갖는 아곤돈터인데, 그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 안에서 언젠가 발생되었던 첫 번째 반역에 가담했던 격리 구체 중의 하나에서 생존하였다.

파라다이스 생애에 두루, 원인에 대한 결과처럼 노력에는 보상이 따라온다. 그러한 보상들은 개별존재를 평범한 자로부터 구별하고, 창조체 체험에서의 차이를 제공하며, 최종자의 집합체 안에서 궁극적 행위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예비무리단의 2차 라노난텍 아들에 의해 제시되었음]

50:7.1 (578.6) On first thought it might appear that Urantia and its associated isolated worlds are most unfortunate in being deprived of the beneficent presence and influence of such superhuman personalities as a Planetary Prince and a Material Son and Daughter. But isolation of these spheres affords their rac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exercise of faith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peculiar quality of confidence in cosmic reliability which is not dependent on sight or any other material consideration. It may turn out, eventually, that mortal creatures hailing from the worlds quarantined in consequence of rebellion are extremely fortunate. We have discovered that such ascenders are very early intrusted with numerous special assignments to cosmic undertakings where unquestioned faith and sublime confidence are essential to achievement.

50:7.2 (579.1) On Jerusem the ascenders from these isolated worlds occupy a residential sector by themselves and are known as the *agondonters*, meaning evolutionary will creatures who can believe without seeing, persevere when isolated, and triumph over insuperable difficulties even when alone. This functional grouping of the *agondonters* persists throughout the ascension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traversal of the superuniverse; it disappears during the sojourn in Havona but promptly reappears upon the attainment of Paradise and definitely persists in the Corps of the Mortal Finality. Tabamantia is an *agondonter* of finaliter status, having survived from one of the quarantined spheres involved in the first rebellion ever to take place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50:7.3 (579.1) All through the Paradise career, reward follows effort as the result of causes. Such rewards set off the individual from the average, provide a differential of creature experience, and contribute to the versatility of ultimate performances in the collective body of the finaliters.

50:7.4 (579.1) [Presented by a Secondary Lanonandek Son of the Reserve Corps.]

제 51 편 행성 아담

⇨ 050

유랜시아 책

052 ⇨

부 II. 지역우주

제 51 편 행성 아담

섹션

소개

제 1 장.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의 기원과 본성

제 2 장. 행성 아담들의 변화

제 3 장. 아담의 사명임무

제 4 장. 여섯 진화 종족

제 5 장. 종족적 혼합—아담의 피의 증여

제 6 장. 에덴의 체제

제 7 장. 연합된 관리-행정

소개

행성영주의 섭리시대 동안, 원시인은 자연적인 진화적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며, 이 생물학적 달성은 아들관계의 2차 계층, 생물학적 제고자(提高者)들을 체계 주권자가 그러한 세계에 보내도록 신호를 준다. 이 아들들은 두 종류—물질아들과 딸—가 있기 때문에 대개 아담과 이브로서 행성에게 알려져 있다. 사타니아의 기원적인 물질아들은 아담이며, 생물학적 제고자들로서 체계 세계들에게로 가는 그들은 독특한 그들 계층의 이 첫 번째 그리고 기원적 아들의 이름을 항상 지닌다.

이들 아들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대한 창조자 아들의 물질적 선물이다. 행성영주와 함께, 그들은 그러한 구체의 진화적 과정에 두루 배정된 그들의 행성에 남는다. 행성영주가 주둔하는 세계에서 그러한 모험 여행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배신한 행성, 영적인 통치자가 없고 행성간의 통신이 두절된 영역에서는 그러한 임무가 심각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PAPER 51

THE PLANETARY ADAMS

SECTIONS

Introduction

1. Origin and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2. Transit of the Planetary Adams

3. The Adamic Missions

4. The Six Evolutionary Races

5. Racial Amalgamation — Bestowal of the Adamic Blood

6. The Edenic Regime

7. United Administration

INTRODUCTION

51:0.1 (580.1) DURING the dispensation of a Planetary Prince, primitive man reaches the limit of natural evolutionary development, and this biologic attainment signals the System Sovereign to dispatch to such a world the second order of sonship, the biologic uplifters. These Sons, for there are two of them —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 are usually known on a planet as Adam and Eve. The original Material Son of Satania is Adam, and those who go to the system worlds as biologic uplifters always carry the name of this first and original Son of their unique order.

51:0.2 (580.2) These Sons are the material gift of the Creator Son to the inhabited worlds. Together with the Planetary Prince, they remain on their planet of assignment throughout the evolutionary course of such a sphere. Such an adventure on a world having a Planetary Prince is not much of a hazard, but on an apostate planet, a realm without a spiritual ruler and deprived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such a mission is fraught with grave danger.

너희가 사타니아 그리고 다른 체계들의 전체 세계들에서 이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을지라도, 유란시아 종족들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루셈의 생물학적 제고자들의 무리단으로부터 왔던 흥미로운 한 쌍, 아담과 이브의 삶과 체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다른 글들에서 언급된다. 너희 원주민 종족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계획들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담의 임무가 무익했던 것은 아니며; 유란시아는 아담과 이브라는 선물로부터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익을 얻었고,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저 높은 곳의 협의회에서는 그들의 업적이 전체적인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 장. 하느님의 물질 아들들의 기원과 본성

물질적 또는 성(性)적 아들들과 딸들은 창조자 아들의 후손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진화 세계들에 대한 육신적 제고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운명되어진 이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들관계에서의 물질적 계층은 지역우주에 두루 균일하지는 않다. 창조자 아들은 각각의 지역체계마다 오직 한 쌍의 이들 존재들을 산출한다; 기원적인 이 쌍들은 본성에 있어서 다양한데, 그들 각각의 체계들의 생명 원형들들에 맞춰진다. 이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담들의 번식 잠재가 어떤 하나의 독특한 체계의 세계들에 존재하는 진화하는 필사 존재들의 그것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왔던 아담과 이브는 물질아들들 중 기원적 사타니아 쌍으로부터 내려왔다.

물질아들들은 키가 8피트부터 1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들의 육신은 보라색의 반짝이는 빛이 난다. 물질적인 피가 그들의 몸체 전체를 흐르는 동시에, 또한 그들은 신성한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고 천상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물질아들(아담들)과 물질딸들(이브들)은 서로 동등한데, 번식 본성에 있어서만 그리고 특정한 화학적 자질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그들은 동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면에서 다르며—그리하여 상호보완적인—거의 모든 임무들에 있어서 쌍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

물질아들들은 이원적(二元的)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체질에 있어서 실제로 이원적(二元的)인데, 영역의 육신적 존재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물질화 된 에너지를 섭취하며, 반면에 그들의 불멸의 실존은 특별하게 유지하는 조화우주 에너지들의 직접적이고도 자동적인 흡수에 의해 충분히 유지된다. 만약에 그들이 부여된 어떤 임무에서 실패하거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빛과 생명의 우주 근원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때부터 그들은 실

51:0.3 (580.3) Although you cannot hope to know all about the work of these Sons on all the worlds of Satania and other systems, other papers depict more fully the life and experiences of the interesting pair, Adam and Eve, who came from the corps of the biologic uplifters of Jerusalem to upstep the Urantia races. While there was a miscarriage of the ideal plans for improving your native races, still, Adam's mission was not in vain; Urantia has profited immeasurably from the gift of Adam and Eve, and among their fellows and in the councils on high their work is not reckoned as a total loss.

1. ORIGIN AND NATUR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51:1.1 (580.4) The material or sex Sons and Daughters are the offspring of the Creator Son; the Universe Mother Spirit does not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these beings who are destined to function as physical uplifters on the evolutionary worlds.

51:1.2 (580.5)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not uniform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The Creator Son produces only one pair of these beings in each local system; these original pairs are diverse in nature, being attuned to the life pattern of their respective systems. This is a necessary provision since otherwise the reproductive potential of the Adams would be nonfunctional with that of the evolving mortal beings of the worlds of any one particular system. The Adam and Eve who came to Urantia were descended from the original Satania pair of Material Sons.

51:1.3 (580.6) Material Sons vary in height from eight to ten feet, and their bodies glow with the brilliance of radiant light of a violet hue. While material blood circulates through their material bodies, they are also surcharged with divine energy and saturated with celestial light. These Material Sons (the Adams) and Material Daughters (the Eves) are equal to each other, differing only in reproductive nature and in certain chemical endowments. They are equal but differential, male and female — hence complemental — and are designed to serve on almost all assignments in pairs.

51:1.4 (581.1) The Material Sons enjoy a dual nutrition; they are really dual in nature and constitution, partaking of materialized energy much as do the physical beings of the realm, while their immortal existence is fully maintained by the direct and automatic intake of certain sustaining cosmic energies. Should they fail on some mission of assignment or even consciously and deliberately rebel, this order of Sons becomes isolated, cut off from connection with the universe source of light and life. Thereupon they become

천적으로 물질적인 존재들이 되는데, 그들이 배정된 세계에서 물질적인 삶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며 판결을 받기 위해 우주 법정에 출두해야만 한다. 그러한 불행하고도 어리석은 물질아들 또는 딸의 행성 생애를 물질적 죽음이 결국에는 종료시키게 될 것이다.

기원적인 또는 직접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똑같이 선천적인 자질에 의해 불멸성을 갖지만, 불멸성 잠재의 감소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특징이다. 기원적인 이 부부는 무조건적 불멸성을 그들이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은 영의 마음-중력 순환회로의 깨어지지 않는 지능적 동조 상태에서 계속하는 생명에 의존한다. 사타니아 체계가 시작된 이후로, 13명의 행성 아담들이 반역과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실되었으며 681,204명의 종속들이 손실되었다. 이러한 결손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란 때에 발생하였다.

체계 수도에서 영구적인 시민들로서 사는 반면, 진화적인 행성들로 내려가는 임무들에서 활동할 때, 물질아들들은 생각 조절자들을 소유하지 않지만, 조절자 내주 그리고 파라다이스 상승 생애를 위한 체험적 능력을 그들이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봉사들을 통해서이다.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정도로 유익한 이 존재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들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역의 물질적 시민들로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가며, 거기로부터 그들은 진화 세계들에게 보내진다.

행성 봉사에 참여하는 다른 창조된 아들과 딸들은 달리,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은 본질적으로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눈에 보인다. 하느님의 이 아들은 보일 수 있고 납득될 수 있으며, 시간의 창조체들과 실재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 제고(提高)의 이 역할이 대개 행성 아담들의 후손에게로 넘어간다.

예루셈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불멸성을 갖지만, 물질아들과 딸이 어떤 진화적 행성에 도착한 후 출산한 후손들은 자연적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어떤 진화 세계에서 번식 기능을 위하여 이 아들이 재(再)물질화 될 때 생명-전달 기능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 죽지 않는 아들과 딸들을 낳는 능력을 생명운반자들이 행성 아담들과 이브들로부터 고의적으로 빼앗는다. 만약에 그들이 불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성 임무를 떠난 아담과 이브는 무기한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떤 제한들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각각의 이어지는 세대들마다 생명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한다.

practically material beings, destined to take the course of material life on the world of their assignment and compelled to look to the universe magistrates for adjudication. Material death will eventually terminate the planetary career of such an unfortunate and unwise Material Son or Daughter.

51:1.5 (581.2) An original or directly created Adam and Eve are immortal by inherent endowment just as are all other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but a diminution of immortality potential characterizes their sons and daughters. This original couple cannot transmit unconditioned immortality to their procreated sons and daughters. Their progeny are dependent for continuing life on unbroken intellectual synchrony with the mind-gravity circuit of the Spirit. Since the inception of the system of Satania, thirteen Planetary Adams have been lost in rebellion and default and 681,204 in the subordinate positions of trust. Most of these defections occurr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51:1.6 (581.3) While living as permanent citizens on the system capitals, even when functioning on descending missions to the evolutionary planets, the Material Sons do not possess Thought Adjusters, but it is through these very services that they acquire experiential capacity for Adjuster indwelling and the Paradise ascension career. These unique and wonderfully useful beings are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They are concentrat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where they reproduce and carry on as material citizens of the realm, and whence they are dispatched to the evolutionary worlds.

51:1.7 (581.4) Unlike the other created Sons of planetary service,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not, by nature, invisible to material creatures like the inhabitants of Urantia. These Sons of God can be seen, understood, and can, in turn, actually mingle with the creatures of time, could even procreate with them, though this role of biologic upliftment usually falls to the progeny of the Planetary Adams.

51:1.8 (581.5) On Jerusem the loyal children of any Adam and Eve are immortal, but the offspring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procreated subsequent to their arrival on an evolutionary planet are not thus immune to natural death. There occurs a change in the life-transmitting mechanism when these Sons are rematerialized for reproductive function on an evolutionary world. The Life Carriers designedly deprive the Planetary Adams and Eves of the power of begetting undying sons and daughters. If they do not default, an Adam and Eve on a planetary mission can live on indefinitely, but within certain limits their children experience decreasing longevity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제 2 장. 행성 아담들의 변화

거주되는 다른 세계가 물리적 진화의 절정에 달하였다는 소식을 받게 되면, 체계 주권자는 체계 수도에 있는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무리단을 소집한다; 그러한 진화 세계에 대해 토의한 후에, 자원하는 집단 중 두 명—물질아들들의 선배 무리단에 속한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이브 두 명—이 모험 여행을 하도록 선택되는데, 연관된 봉사의 자기 고향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위험들이 있는 새 영역으로 옮겨지기 위해, 세라핌천사에게 둘러싸인 존재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모험에 들어간다.

아담들과 이브들은 반(半)물질 창조체들이며, 그러한 상태로는 세라핌천사에 의해 운송되지 않는다. 그들은 배정될 세계로 운송되도록 세라핌천사에 의해 둘러싸일 수 있기 전에 체계 수도에서 반드시 비(非)물질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운송천사들은 물질아들들 안에서 그리고 다른 반 물질적 존재들 안에서 그러한 변화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세라핌천사에 둘러싸이게 하고 그리하여 한 세계 또는 체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공중을 통해 운송되게 한다. 이러한 운송 준비에 표준시간으로 3일이 소요되며, 비(非)물질화된 그러한 창조체가 세라핌천사-운송 여행을 끝내고 도착하여 정상적인 실존으로 재생되는 일에는 생명운반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담들이 예루셈으로부터 진화세계들로 옮겨지도록 준비되는 일에 이 비(非)물질화 기법이 있는 반면에, 행성 전체가 비워져야만 되는, 그곳의 어떤 사건에서 구원될 만한 인구 전체를 위하여 비(非)물질화 기법의 응급설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세계들로부터 그들을 데려가는 동등한 방법은 없다. 만약에 물리적 대참사가 진화하는 어떤 종족의 행성 거주지에 일어난다면, 멜기세덱들과 생명운반자들은 모든 생존자들을 위하여 비(非)물질화의 기법을 설치할 것이며, 이곳의 존재들은 세라핌천사 운송에 의해 그들의 계속되는 실존을 위해 준비되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 인간 종족의 진화는, 공간의 세계에서 일단 시작되고 나면, 행성의 물리적 생존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진화의 시대 동안에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그들이 선택한 세계를 떠날 수 있도록 달리 작정되지는 않는다.

행성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물질아들과 딸은 생명운반자들의 지도 하에 재(再)물질화 된다. 이 전체 과정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일내지 28일이 소요된다. 세라핌천사 수면의 무의식 상태는 재구성되는 이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된다. 물리적 유기체의 재구성이 완성되면, 이 물질아들들과 딸

2. TRANSIT OF THE PLANETARY ADAMS

51:2.1 (582.1) Upon receipt of the news that another inhabited world has attained the height of physical evolution, the System Sovereign convenes the corp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n the system capital; and following the discussion of the needs of such an evolutionary world, two of the volunteering group — an Adam and an Eve of th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 are selected to undertake the adventure, to submit to the deep sleep preparatory to being enseraphimed and transported from their home of associated service to the new realm of new opportunities and new dangers.

51:2.2 (582.2) Adams and Eves are semimaterial creatures and, as such, are not transportable by seraphim. They must undergo dematerialization on the system capital before they can be enseraphimed for transport to the world of assignment. The transport seraphim are able to effect such changes in the Material Sons and in other semimaterial beings as enable them to be enseraphimed and thus to be transported through space from one world or system to another. About three days of standard time are consumed in this transport preparation, and it requires the co-operation of a Life Carrier to restore such a dematerialized creature to normal existence upon arrival at the end of the seraphic-transport journey.

51:2.3 (582.3) While there is this dematerializing technique for preparing the Adams for transit from Jerusalem to the evolutionary worlds, there is no equivalent method for taking them away from such worlds unless the entire planet is to be emptied, in which event emergency installation of the dematerialization technique is made for the entire salvable population. If some physical catastrophe should doom the planetary residence of an evolving race, the Melchizedeks and the Life Carriers would install the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for all survivors, and by seraphic transport these beings would be carried away to the new world prepared for their continuing existence. The evolution of a human race, once initiated on a world of space, must proceed quite independently of the physical survival of that planet, but during the evolutionary ages it is not otherwise intended that a Planetary Adam or Eve shall leave their chosen world.

51:2.4 (582.4) Upon arrival at their planetary destination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rematerializ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ife Carriers. This entire process takes ten to twenty-eight days of Urantia time. The unconsciousness of the seraphic slumber continues throughout this entire period of reconstruction. When the

들은 그들이 예루셈에서 비(非)물질화 되도록 내어주기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취지들과 목적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에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들에 참여한다.

제 3 장. 아담의 사명임무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그들 자신의 동산 주택들을 세우는데, 자기들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곧 도움을 받는다. 정원의 위치는 대개 행성영주에 의해 선정되어 왔으며, 그의 유형 참모진은 원주민 종족들 중 비교적 높은 유형들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준비하는 예비 작업에 많이 참여한다.

이 에덴의 동산들은 별자리 수도인 에덴시아에 경의를 표하여 그렇게 명명되며, 그들이 지고자 아버지들의 본부 세계의 장엄한 식물들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동산 주택들은 대개 세상에서 격리된 구역 그리고 회귀선-근처 지역에 위치한다. 그것들은 평균적인 세계에서 볼 때 경이로운 창조계들이다.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던 도중에 성장이 멈춘 단편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이 아름다운 문화 중심지들을 전혀 판단할 수 없다.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잠재로 볼 때 필사 종족들에 대한 육체적 은혜의 충만한 선물이다. 외부로부터 온 그러한 한 쌍의 주요 업무는 시간의 자녀들을 배가시키고 재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적인 상호적 번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세대들 동안 아담과 이브는 진화적 필사자들로부터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상태에 남아 있는 한편 그들 계층에 속하는 강력한 종족을 이룩한다. 이것이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보라색 종족들의 기원이다.

종족 증진을 위한 계획들은 행성영주와 그의 참모진에 의해 준비되며 아담과 이브에 의해 실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물질아들과 그의 동행자들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을 때 큰 불이익에 놓이게 된 장소이다. 칼리가스티아는 아담의-임무에 교환하고도 효력적인 저항을 제공하였다;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반역적인 행성영주의 현존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행성 위험들에 관해 아담과 이브 둘 모두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의 원흉은 의지적인 전략에 의해 에덴 부부의 허를 찔렀으며 그들을 텃에 걸리게 하여 너희들 세계의 가시적인 통치자들로서의 그들의 위탁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반역의 행성영주는 너희의 아담과 이브와 타협하는 일에 성공하였지만, 그들을 루시퍼 반란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는 실패하였다.

행성 조력자들인 다섯 번째 계층의 천사들이

reassembly of the physical organism is completed, thes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stand in their new homes and on their new world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just as they were before submitting to the dematerializing process on Jerusem.

3. THE ADAMIC MISSIONS

51:3.1 (582.5) On the inhabited world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construct their own garden homes, soon being assisted by their own children. Usually the site of the garden has been selected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corporeal staff do much of the preliminary work of preparation with the help of many of the higher types of native races.

51:3.2 (583.1) These Gardens of Eden are so named in honor of Edentia, the constellation capital, and because they are patterned after the botanic grandeur of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Most High Fathers. Such garden homes are usually located in a secluded section and in a near-tropic zone. They are wonderful creations on an average world. You can judge nothing of these beautiful centers of culture by the fragmentary account of the aborted development of such an undertaking on Urantia.

51:3.3 (583.2) A Planetary Adam and Eve are, in potential, the full gift of physical grace to the mortal races. The chief business of such an imported pair is to multiply and to uplift the children of time. But there is no immediate interbree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garden and those of the world; for many generations Adam and Eve remain biologically segregated from the evolutionary mortals while they build up a strong race of their order. This is the origin of the violet race on the inhabited worlds.

51:3.4 (583.3) The plans for race upstepping are prepared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and are executed by Adam and Eve. And this was where your Material Son and his companion were placed at great disadvantage when they arrived on Urantia. Caligastia offered crafty and effective opposition to the Adamic mission; and notwithstanding that th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had duly warned both Adam and Eve concerning the planetary dangers inherent in the presence of the rebellious Planetary Prince, this archrebel, by a wily stratagem, outmaneuvered the Edenic pair and entrapped them into a violation of the covenant of their trusteeship as the visible rulers of your world. The traitorous Planetary Prince did succeed in compromising your Adam and Eve, but he failed in his effort to involve them in the Lucifer rebellion.

51:3.5 (583.4) The fifth order of angels, the planetary

아담의-임무에 배속되는데, 행성 아담들의 세계 모험 여행에 있어서 항상 동반한다. 처음에 배정된 무리단은 대개 약 10만 명이다.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활동이 조급하게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규정된 계획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비난받을 만한 그들의 행위성에 관하여 그들을 꾸짖은 것은 동산의 세라핌천사 음성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너희의 이야기에서, 너희의 행성 전승들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주 하느님께 돌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풍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은 우주 아버지의 본성에 관하여 혼동되어 왔는데, 이는 모든 그의 연관-동료들과 권속들의 말들과 행위들을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속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동산의 천사는 다름 아닌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행성 조력자들의 우두머리였다. 이 세라핌천사, 솔로니아는 신성한 계획의 실패를 선언하고 그리고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다.

2차 중도 창조체들은 아담의-임무에 대하여 도착적이다.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아들들과 딸들의 후손들은 두 계층이 있다: 즉 그들의 육체적 자녀들과 2차 계층의 중도 창조체들이다. 물질적이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 사명활동자들은 문명의 진보에 크게 이바지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발전과 영적 진보를 오히려 파괴하려고 애쓸 수도 있는 순종하지 않는 소수의 존재들을 굴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2차 중도자들은 1차 계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행성영주가 도착될 무렵에 시작되었다. 유란시아의 경우 비교적 초기의 이 중도 창조체들 중 대부분은 칼리가스티아와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으며 오순절 이래로 억류되어 왔다. 행성 관리-행정에 충성하기를 거부하였던 아담의-집단 중 대부분 역시 비슷하게 억류되어 있다.

오순절 날, 충성스러운 1차와 2차 중도자들은 자발적인 연합이 발효되었고 그 후로 계속 세계적 관련사들에서 한 단체로 기능해 오고 있다. 그들은 두 집단들로부터 교대로 선택된 충성스러운 중도자들의 통솔을 받고 있다.

너희의 세계는 아들관계의 네 계층들에 의해 방문을 받아 왔다: 칼리가스티아, 행성영주;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인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의 현자(賢者)”, 마키벤타 멜기세덱; 그리고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로써 왔던 그리스도 미가엘. 네바돈 우주의 최극 통치자인 미가엘이, 증여된 아들의 필생의 사업과 임무를 매우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충성스럽고도 유능한 행성영주와 헌신되고 성공적인 물질아들, 그 둘 모두에 의해 환영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효력이 있고 아름

helpers, are attached to the Adamic mission, always accompanying the Planetary Adams on their world adventures. The corps of initial assignment is usually about one hundred thousand. When the work of the Urantia Adam and Eve was prematurely launched, when they departed from the ordained plan, it was one of the seraphic Voices of the Garden who remonstrated with them concerning their reprehensible conduct. And your narrative of this occurrence well illustrates the manner in which your planetary traditions have tended to ascribe everything supernatural to the Lord God. Because of this, Urantians have often become confused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since the words and acts of all his associates and subordinates have been so generally attributed to him. In the case of Adam and Eve, the angel of the Garden was none other than the chief of the planetary helpers then on duty. This seraphim, Solonia, proclaimed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and requisitioned the retur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o Urantia.

51:3.6 (583.5) The secondary midway creatures are indigenous to the Adamic missions. As with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the descendant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of two orders: their physical children and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 creatures. These material but ordinarily invisible planetary ministers contribute much to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even to the subjection of insubordinate minorities who may seek to subvert social development and spiritual progress.

51:3.7 (583.6) The secondary midway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primary order, who date from the near times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On Urantia a majority of these earlier midway creatures went into rebellion with Caligastia and have, since Pentecost, been interned. Many of the Adamic group who did not remain loyal to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are likewise interned.

51:3.8 (584.1) On the day of Pentecost the loyal primary and the secondary midways effected a voluntary union and have functioned as one unit in world affairs ever since. They serve under the leadership of loyal midways alternately chosen from the two groups.

51:3.9 (584.2) Your world has been visited by four orders of sonship: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Adam and Eve of the Material Sons of God; Machiventa Melchizedek, the “sage of Salem” in the days of Abraham; and Christ Michael, who came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How much more effective and beautiful it would have been had Michael, the supreme ruler of the universe of Nebadon, been welcomed to your world by a loyal and efficient Planetary Prince

다웠겠는가! 그러나 모든 세계들이 유란시아처럼 불행했던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행성 아담들의 임무가 항상 그토록 어렵고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성공하였을 때,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발달되도록 기여하며, 한 세계가 빛과 생명 속에 안주하는 시대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행성의 관련사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로서 이어간다.

제 4 장. 여섯 진화 종족

거주되는 세계들의 초기 시대 동안 우세하였던 종족은 적색인인데, 그들은 통상적으로 발달에서 인간 차원을 달성하는 첫 번째이다. 적색인이 행성들의 선임 종족이지만 한편으로는 뒤를 잇는 유색인(有色人)들은 필사자 창발의 시대에서 아주 초기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교적 초기 종족들은 후기의 종족들보다 어느 정도 우월하다; 적색인은 남색—흑색 인종—보다 훨씬 뛰어나다. 생명운반자들은 최초의 즉, 적색의 인종에게 충만한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증여를 나누어주었으며, 그리고 필사자의 다른 유별난 집단의 이어지는 각각의 진화적 현시활동은 기원적인 수여자질을 희생하고 얻는 변화임을 뜻한다. 유란시아에서 예기치 않던 거인종의 유전인자가 녹색과 오렌지색 종족 사이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자의 키는 적색인부터 남색 종족에 이르기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여섯 개의 진화적 종족들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들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종족들—적색, 황색, 그리고 청색—이 우세하다. 진화적 인종들은 지적 성장과 영적 발달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느 정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이 2차 인종들은 어떤 세계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많은 다른 곳들에서 이미 멸종되었다. 유란시아에서 너희의 우월한 청색인들이 혼혈된 “백색 종족” 안에 잔존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너희가 그들을 그토록 많이 잃은 것은 하나의 불행이다. 오렌지색과 녹색 혈통의 손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못 된다.

여섯—또는 셋—유색 인종들의 진화는, 적색인의 기원적 자질이 악화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자 유형들 속에 매우 바람직한 어떤 변화들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간적 잠재들의 달성하기 힘든 다른 형식을 제공한다. 이 변화들은 그들이 수입된 아담의-종족 또는 보라색 종족에 의해 나중에 증진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경우 이 평범한 혼합 계획이 광대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종족 진화 계획 수행에 있어서의 이 실패는 너희들 세계에 있는 이 초기적 종족들의 후손들을 봄으로써 평균적인 거주 행성에서의 이 민족들의 지

and a devoted and successful Material Son, both of whom could have done so much to enhance the lifework and mission of the bestowal Son! But not all worlds have been so unfortunate as Urantia, neither has the mission of the Planetary Adams always been so difficult or so hazardous. When they are successful,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great people, continuing as the visible heads of planetary affairs even far into the age when such a world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4. THE SIX EVOLUTIONARY RACES

51:4.1 (584.3) The race of dominance during the early ages of the inhabited worlds is the red man, who ordinarily is the first to attain human levels of development. But while the red man is the senior race of the planets, the succeeding colored peoples begin to make their appearances very early in the age of mortal emergence.

51:4.2 (584.4) The earlier races are somewhat superior to the later; the red man stands far above the indigo — black — race. The Life Carriers impart the full bestowal of the living energies to the initial or red race, and each succeeding evolutionary manifestation of a distinct group of mortals represents variation at the expense of the original endowment. Even mortal stature tends to decrease from the red man down to the indigo race, although on Urantia unexpected strains of giantism appeared among the green and orange peoples.

51:4.3 (584.5) On those worlds having all six evolutionary races the superior peoples are the first, third, and fifth races — the red, the yellow, and the blue. The evolutionary races thus alternate in capacity for intellectual growth and spiritual development, the second, fourth, and sixth being somewhat less endowed. These secondary races are the peoples that are missing on certain worlds; they are the ones that have been exterminated on many others. It is a misfortune on Urantia that you so largely lost your superior blue men, except as they persist in your amalgamated “white race.” The loss of your orange and green stocks is not of such serious concern.

51:4.4 (584.6) The evolution of six — or of three — colored races, while seeming to deteriorate the original endowment of the red man, provides certain very desirable variations in mortal types and affords an otherwise unattainable expression of diverse human potentials. These modifications are beneficial to the progress of mankind as a whole provided they are subsequently upstepped by the imported Adamic or violet race. On Urantia this usual plan of amalgamation was not extensively carried out, and this failure to execute the plan of race evolution makes it impossible for you to understand very much about the status of

위에 대해 너희가 매우 많이 아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종적 발달의 초기 시대에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이 서로 피를 나누는 경향이 약간 있다;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들이 서로 섞이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

비교적 진보가 늦은 인간들은 대개 비교적 더 많이 진보된 인종들에 의해 노동자들로 채용된다. 이것이 초기 시대에 행성들에서 노예제도가 기원된 것을 설명한다. 오렌지색 사람들은 대개 적색 종족에 의해 정복되었고 하인의 지위로 격하되었다—때로는 멸절되었다. 황색인과 적색인들은 종종 형제우애를 가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황색 종족은 대개 녹색 인종을 노예로 삼는 반면, 청색인은 남색인을 정복한다. 이들 원시인의 종족들은 유란시아인들이 말이나 가축을 사교할듯이 뒤떨어진 그들 동료들의 봉사를, 강제로 부려먹는 노동에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 결함과 사회적 불이행이 여전히 부득이한 노동의 억지 이행을 종종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부득이한 강제노동은 행성영주의 시대에 잔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상적 구체들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원시적 노예제도는 수입된 보라색 종족 또는 아담의-종족이 도착된 후에 사라진다.

진화하는 이들 여섯 종족은 아담의-제고자들의 자손들과의 혼혈에 의하여 섞이고 고양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민족들이 섞여지기 전에, 열등하고 부적합한 자들은 대규모로 제거된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은, 다른 적절한 행성 권한자들과 함께, 재생산 혈통들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러한 급진적 계획이 유란시아에서 수행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너희 세계 종족들의 개별존재의 생물학적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유능한 재판관들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주 두드러지게 부적합하고, 결함이 있고, 퇴보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혈통들의 생물학적 자질을 박탈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종족적 혼합—아담의 피의 증여

행성 아담과 이브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지능존재들의 존재하고 있는 종족들의 개선에 최고의 방법으로 효과를 주도록, 그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충분한 교육을 이미 받았다. 진행 계획을 확실히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사명활동하는 부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특별히 유란시아의 경우와 같은 무질서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계들의 경우에는 오류들이 종종 발생된다.

these peoples on an average inhabited planet by observing the remnants of these early races on your world.

51:4.5 (585.1) In the early days of racial development there is a slight tendency for the red, the yellow, and the blue men to interbreed; there is a similar tendency for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to intermingle.

51:4.6 (585.2) The more backward humans are usually employed as laborers by the more progressive races. This accounts for the origin of slavery on the planets during the early ages. The orange men are usually subdued by the red and reduced to the status of servants — sometimes exterminated. The yellow and red men often fraternize, but not always. The yellow race usually enslaves the green, while the blue man subdues the indigo. These races of primitive men think no more of utilizing the services of their backward fellows in compulsory labor than Urantians would of buying and selling horses and cattle.

51:4.7 (585.3) On most normal worlds involuntary servitude does not survive the dispensation of the Planetary Prince, although mental defectives and social delinquents are often still compelled to perform involuntary labor. But on all normal spheres this sort of primitive slavery is abolished soon after the arrival of the imported violet or Adamic race.

51:4.8 (585.4) These six evolutionary races are destined to be blended and exalted by amalgamation with the progeny of the Adamic uplifters. But before these peoples are blended, the inferior and unfit are largely eliminated.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 with other suitable planetary authorities, pass upon the fitness of the reproducing strains. The difficulty of executing such a radical program on Urantia consists in the absence of competent judges to pass upon the biologic fitness or unfitness of the individuals of your world races. Notwithstanding this obstacle, it seems that you ought to be able to agree upon the biologic disfellowshipping of your more markedly unfit, defective, degenerate, and antisocial stocks.

5. RACIAL AMALGAMATION — BESTOWAL OF THE ADAMIC BLOOD

51:5.1 (585.5) When a Planetary Adam and Eve arrive on an inhabited world, they have been fully instructed by their superiors as to the best way to effect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races of intelligent beings. The plan of procedure is not uniform; much is left to the judgment of the ministering pair, and mistakes are not infrequent, especially on disordered, insurrectionary worlds,

보라색 인종들은 대개 그들 자체 집단의 수가 100만 명이 넘기 전까지는 행성 원주민들과의 혼혈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안에 행성영주의 참모진은 하느님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왔던 것처럼, 사람 종족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려와 있음을 선언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월한 인종적 혈통에 속함에 따라 분별화되는 자들이 에덴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혼합된 인류 계층의 진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이 공포될 그 날을 갈망하며 기다린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진화 종족들과 결코 결혼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개선시키는 이 작업은 아담의-자손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들 아담-사람들이 종족들 가운데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영주의 참모들이 아담의-후손들과의 자발적인 결혼을 위해 우월한 남녀들을 에덴동산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들에서는 동산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는 후보로 선택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간주된다.

세계 종족들이 동산에 들어가도록 인정받고 그리고 입장하는 자격을 갖추려고 점점 더 분투하는 동안, 종족간의 전쟁과 다른 부족 간 갈등들이 처음으로 감소된다. 경쟁하는 이 갈등이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모든 활동들의 중심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지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알 수 없을 것이다. 종족 개선에 있어서의 이 전체적 설계는 유란시아에서 일찍부터 좌절되었다.

보라색 인종은 일부일처제의 민족이며, 아담의-아들들과 그리고 딸들과 연합한 각각의 진화적 남자 또는 여자는 다른 배우자들을 취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의 또는 그녀의 자녀들도 한번-결혼하도록 가르치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연합된 각각의 자녀들은 행성영주의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그들의 진화적 부모의 종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우월한 필사자들의 선택된 집단들 가운데에서 결혼하도록 허용된다.

물질아들들의 이 혈통이 세계들의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덧붙여졌을 때, 새롭고도 더욱 위대한 진화적 진보의 시대가 시작된다. 수입된 능력과 초(超)진화 특색이 부여된 이 출산 능력에 뒤따라서, 문명화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빠른 발전과 인종적 발달이 일어나며; 그 이전에 투쟁하던 100만 년 동안 일어났던 진보보다 더 많은 것들이 10만 년 동안에 발생된다. 너희들 세계의 경우, 심지어는 규정된 계획들의 실패에 직면해서도,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너희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후로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성 에덴동산의 순수 혈통 자손들이 그들 자신을 진화적 인종들 중 우월한 사람들에게 증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차원을

such as Urantia.

51:5.2 (585.6) Usually the violet peoples do not begin to amalgamate with the planetary natives until their own group numbers over one million. But in the meantime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proclaims that the children of the Gods have come down, as it were, to be one with the races of men; and the people eagerly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nouncement will be made that those who have qualified as belonging to the superior racial strains may proceed to the Garden of Eden and be there chosen by the sons and daughters of Adam as the evolutionary fathers and mothers of the new and blended order of mankind.

51:5.3 (585.7) On normal worlds the Planetary Adam and Eve never mate with the evolutionary races. This work of biologic betterment is a function of the Adamic progeny. But these Adamites do not go out among the races; the prince's staff bring to the Garden of Eden the superior men and women for voluntary mating with the Adamic offspring. And on most worlds it is considered the highest honor to be selected as a candidate for mating with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garden.

51:5.4 (586.1) For the first time the racial wars and other tribal struggles are diminished, while the world races increasingly strive to qualify for recognition and admission to the garden. You can at best have but a very meager idea of how this competitive struggle comes to occupy the center of all activities on a normal planet. This whole scheme of race improvement was early wrecked on Urantia.

51:5.5 (586.2) The violet race is a monogamous people, and every evolutionary man or woman uniting with the Adamic sons and daughters pledges not to take other mates and to instruct his or her children in single-matedness. The children of each of these unions are educated and trained in the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n are permitted to go forth to the race of their evolutionary parent, there to marry among the selected groups of superior mortals.

51:5.6 (586.3) When this strain of the Material Sons is added to the evolving races of the worlds, a new and greater era of evolutionary progress is initiated. Following this procreative outpouring of imported ability and superevolutionary traits there ensues a succession of rapid strides in civilization and racial development; in one hundred thousand years more progress is made than in a million years of former struggle. In your world, even in the face of the miscarriage of the ordained plans,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since the gift to your peoples of Adam's life plasm.

51:5.7 (586.4) But while the pure-line children of a planetary Garden of Eden can bestow themselves upon the superior members of the evolutionary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 유란시아 필사자들 중 비교적 높은 혈통들이 비교적 저급한 인종들과 결혼하는 일은 유익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현명치 못한 과정은 너희들 세계에 있는 모든 시민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아담의-기법에 의해 인종의 조화를 성취하는 것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인종 개선에 대한 너희 행성의 문제에서 적응과 통제에서의 다른 방법 그리고 주로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6 장. 에덴의 체제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의 경우에 에덴동산들은 우수한 문화적 중심지로서 남아 있으며 행성 행위성의 사회적 원형들과 관련로서 여러 시대 동안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보라색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격리된 초기시대의 경우에도, 그들의 학교들은 세계 종족들로부터 합당한 후보자들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동산의 산업발달은 상업적 왕래의 새로운 통로들을 개설한다. 그리하여 아담들과 이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문화의 갑작스러운 확대에 기여하고 그들의 세계들의 진화적인 인종들의 빠른 개선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은 진화 종족들과 아담의 아들들의 혼합에 의해 증강되고 보증되는데, 그 결과로 생물학적 지위의 즉각적인 증진, 지적 잠재의 갱생, 영적 접수성의 증진이 발생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에 보라색 인종의 동산 본부들은 세계 문화의 2차 중심지가 되며, 그리고 행성영주의 본부 도시와 공동으로, 문명화의 발달을 위한 속도를 정한다. 여러 세기들 동안 행성영주의 도시 본부 학교들과 아담 그리고 이브의 동산 학교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들은 대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조화로운 협동 속에서 함께 일한다.

중단되지 않고 37,000년 동안 기능을 발휘해 온, 문명화의 세계 중심지, 위대한 행성 문화 대학이 레반트 지역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것이 너희 세계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다시, 천상의 사명활동을 베푸는 또 다른 그리고 더 오래된 본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500,000년 동안 집대성된 진화적 영향을 발휘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비록 그러한 고대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도덕적 권한이 강화될 것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라. 에덴의 이상이 결국에는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이 관행이다.

행성영주의 학교들은 철학, 종교, 도덕,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적 그리고 예술적 성취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들은 대개 실천적인 예술, 기초적인 지적 훈련, 사회

races and thereby upstep the biologic level of mankind, it would not prove beneficial for the higher strains of Urantia mortals to mate with the lower races; such an unwise procedure would jeopardize all civilization on your world. Having failed to achieve race harmonization by the Adamic technique, you must now work out your planetary problem of race improvement by other and largely human methods of adaptation and control.

6. THE EDENIC REGIME

51:6.1 (586.5) 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the Gardens of Eden remain as superb cultural centers and continue to function as the social patterns of planetary conduct and usage age after age. Even in early times when the violet peoples are relatively segregated, their schools receive suitable candidates from among the world races, while the industrial developments of the garden open up new channels of commercial intercourse. Thus do the Adams and Eves and their progeny contribute to the sudden expansion of culture and to the rapid improvement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their worlds. And all of these relationships are augmented and sealed by the amalgam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and the sons of Adam, resulting in the immediate upstepping of biologic status, the quickening of intellectual potential, and the enhancement of spiritual receptivity.

51:6.2 (586.6) On normal worlds the garden headquarters of the violet race becomes the second center of world culture and, jointly with the headquarters city of the Planetary Prince, sets the pace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For centuries the city headquarters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garden schools of Adam and Eve are contemporary. They are usually not very far apart, and they work together in harmonious co-operation.

51:6.3 (587.1) Think what it would mean on your world if somewhere in the Levant there were a world center of civilization, a great planetary university of culture, which had functioned uninterruptedly for 37,000 years. And again, pause to consider how the moral authority of even such an ancient center would be reinforced were there situated not far-distant still another and older headquarters of celestial ministry whose traditions would exert a cumulative force of 500,000 years of integrated evolutionary influence. It is custom which eventually spreads the ideals of Eden to a whole world.

51:6.4 (587.2) The schools of the Planetary Prince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philosophy, religion, morals, and the higher intellectual and artistic achievements. The garden schools of Adam and Eve are usually devoted to practical arts,

적 문화, 경제 발달, 교역 관계, 물리적 효율성, 그리고 시민 정부에 관여한다. 결국에는 이들 세계 중심들이 혼합되지만, 실제적인 이 합병은 첫 번째 치안법관 아들의 시대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행성 아담과 이브의 계속적인 실존은, 보라색 인종의 순수-혈통 핵과 함께, 전통이라는 강제적인 기제로 세계의 문명화에서 작용하게 됨으로써 에덴의 문화에 성장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 불멸의 물질아들들과 딸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종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고리를 만나는데, 영원한 창조자와 시간의 가장 낮은 유한 개인성들 사이를 연결시킨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심지어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처럼 성적 창조체인 존재가 여기에 있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영주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영역의 필사 창조체들에게 그의 말을 통역하는데, 왜냐하면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영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행성영주 그리고 그의 전체 참모진을 눈에 보이게 한다.

세기들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자손이 사람들의 종족들과 혼합됨을 통하여, 동일한 이 물질아들과 딸은 인류의 공통 조상들, 진화적 인종들 중 이제 피가 섞인 후손들의 공통 부모들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부터 시작된 필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일곱 아버지들을 인식하는 체험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다:

1. 생물학적 아버지—육신에서의 아버지.
2. 영역의 아버지—행성 아담.
3. 구체들의 아버지—체계 주권자.
4. 지고자 아버지—별자리 아버지.
5. 우주의 아버지—창조자 아들 그리고 지역 창조계의 최극 통치자.
6. 초(超)-아버지들—초우주를 통치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
7. 영 또는 하보나 아버지—우주 아버지, 파라다이스에 거하시고 우주들의 우주에서 사는 낮은 창조체들의 마음속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자신의 영을 증여하는 분.

제 7 장. 연합된 관리-행정

때때로 파라다이스의 아보날 아들들이 심판

fundamental intellectual training, social culture,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physical efficiency, and civil government. Eventually these world centers amalgamate, but this actual affiliation sometimes does not occur until the times of the first Magisterial Son.

51:6.5 (587.3)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together with the pure-line nucleus of the violet race, imparts that stability of growth to Edenic culture by virtue of which it comes to act upon the civilization of a world with the compelling force of tradition. In these immortal Material Sons and Daughters we encounter the last and the indispensable link connecting God with man, bridging the almost infinite gulf between the eternal Creator and the lowest finite personalities of time. Here is a being of high origin who is physical, material, even a sex creature like Urantia mortals, one who can see and comprehend the invisible Planetary Prince and interpret him to the mortal creatures of the realm, for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re able to see all of the lower orders of spirit beings; they visualize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entire staff, visible and invisible.

51:6.6 (587.4) With the passing of centuries, through the amalgamation of their progeny with the races of men, this same Material Son and Daughter become accepted as the common ancestors of mankind, the common parents of the now blended descendants of the evolutionary races. It is intended that mortals who start out from an inhabited world have the experience of recognizing seven fathers:

- 51:6.7 (587.5) 1. The biologic father — the father in the flesh.
- 51:6.8 (587.6) 2. The father of the realm — the Planetary Adam.
- 51:6.9 (587.7) 3. The father of the spheres — the System Sovereign.
- 51:6.10 (587.8) 4. The Most High Father — the Constellation Father.
- 51:6.11 (587.9) 5. The universe Father — the Creator Son and supreme ruler of the local creations.
- 51:6.12 (587.10) 6. The super-Fathers — the Ancients of Days who govern the superuniverse.
- 51:6.13 (587.11) 7. The spirit or Havona Father — the Universal Father, who dwells on Paradise and bestows his spirit to live and work in the minds of the lowly creatures who inhabit the universe of universes.

7. UNITED ADMINISTRATION

51:7.1 (587.12) From time to time the Avonal Sons of

활동을 위해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오지만, 치안 법관 임무를 띤 첫 번째 아보날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네 번째 세대가 시작되게 한다. 이 치안법관 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행성들에서는, 그가 한 시대 동안 남아 있다; 그래서 행성은 세 아들들의 공동 통치 아래에서 번영한다: 행성영주, 물질아들, 그리고 치안법관 아들, 마지막 두 존재는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눈에 보인다.

첫 번째 치안법관 아들이 정상적인 진화적 세계에서의 그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 행성영주와 물질아들의 교육적이고 관리-행정적인 일들의 연합은 효력적으로 되어져 왔다. 행성의 이원적(二元的) 감독의 이러한 혼혈은 세계 관리-행정의 세롭고도 효력적인 질서가 실존하도록 해준다. 치안법관 아들이 은퇴함에 따라 행성 아담은 구체의 외부로 향한 지도를 시작한다. 물질아들과 딸은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안주할 때까지 행성 관리-행정자들로서 공동으로 그렇게 활동 한다; 그렇게 되면 행성영주는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승진된다. 진보된 진화의 이 시대 동안, 아담과 이브는 영화롭게 된 영역의, 이름으로 불리운다면, 공동 수상이 된다.

진화하는 세계의 세롭고도 통합된 수도가 잘 수립되자마자, 그리고 유능한 하급 행정-관리자들이 적당하게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빠르기로, 위성 수도들이 멀리 있는 땅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건설된다. 다른 세대적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이 부차적 중심지들이 조직될 것이다.

행성영주와 그의 참모진은 여전히 영적 그리고 철학적 활동 권역들을 육성한다. 아담과 이브는 영역의 물리적, 과학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두 집단들은 예술과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지적 성취들의 증진에 그들의 에너지를 동등하게 바친다.

세계 관련사들의 5번째 세대가 시작될 때까지, 행성 활동들에 대한 장엄한 관리-행정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한 잘-운영되는 구체에 있는 필사자 실존은 정말로 활기를 띠고 유익하다. 그리고 만일 유관시아인들이 그러한 행성에서의 삶을 관측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악을 받아들이으로써 그리고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것들의 가치를 즉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비우리단의 2차 라노난덱 아들에 의해 제시되었음]

Paradise come to the inhabited worlds for judicial actions, but the first Avonal to arrive on a magisterial mission inaugurates the fourth dispensation of an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On some planets where this Magisterial Son is universally accepted, he remains for one age; and thus the planet prospers under the joint rulership of three Sons: the Planetary Prince, the Material Son, and the Magisterial Son, the latter two being visible to all the inhabitants of the realm.

51:7.2 (588.1) Before the first Magisterial Son concludes his mission on a normal evolutionary world, there has been effected the union of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 This amalgamation of the dual supervision of a planet brings into existence a new and effective order of world administration. Upon the retirement of the Magisterial Son the Planetary Adam assumes the outward direction of the sphe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us act jointly as planetary administrators until the settling of the world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whereupon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 During this age of advanced evolution, Adam and Eve become what might be called joint prime ministers of the glorified realm.

51:7.3 (588.2) As soon as the new and consolidated capital of the evolving world has become well established, and just as fast as competent subordinate administrators can be properly trained, subcapitals are founded on remote land bodies and among the different peoples. Before the arrival of another dispensational Son, from fifty to one hundred of these subcenters will have been organized.

51:7.4 (588.3)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still foster the spiritual and philosophic domains of activity. Adam and Ev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hysical, scientific, and economic status of the realm. Both groups equally devote their energies to the promotion of the arts, social relation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s.

51:7.5 (588.4) By the time of the inauguration of the fifth dispensation of world affairs, a magnificent administration of planetary activities has been achieved. Mortal existence on such a well-managed sphere is indeed stimulating and profitable. And if Urantians could only observe life on such a planet, they would immediately appreciate the value of those things which their world has lost through embracing evil and participating in rebellion.

51:7.6 (588.5) [Presented by a Secondary Lanonandek Son of the Reserve Corps.]

제 52 편 행성 필사자 신(新)시대

⇨ 051

유란시아 책

053 ⇨

부 II. 지역우주

제 52 편 행성 필사자 신(新)시대

섹션

소개

제 1 장. 원시인

제 2 장. 행성영주 이후의 사람

제 3 장. 아담-이후의 사람

제 4 장. 치안법관 아들—이후의 사람

제 5 장. 증여 아들 이후의 사람

제 6 장. 유란시아의 증여 이후 시대

제 7 장. 교사 아들 이후의 사람

PAPER 52

PLANETARY MORTAL EPOCHS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Man

2. Post-Planetary Prince Man

3. Post-Adamic Man

4. Post-Magisterial Son Man

5. Post-Bestowal Son Man

6. Urantia's Post-Bestowal Age

7. Post-Teacher Son Man

소개

진화적 행성에서 생명이 발단된 이후부터 빛과 생명 속에서 최종적인 꽃을 피우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활동의 단계에는 최소한 일곱 가지 신(新)시대들의 인간 삶이 나타난다. 연속되는 이 시대들은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임무들에 의해 결정되며, 평균적인 거주 세계들의 경우 이 시대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행성영주-이전(以前) 사람.
2. 행성영주-이후(以後) 사람.
3. 아담의-이후 사람.
4. 치안법관 아들-이후 사람.
5. 증여 아들-이후 사람.
6. 교사 아들-이후 사람.
7. 빛과 생명의 시대.

우주에 있는 세계들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생명에 적합하게 되는 순간, 생명운반자들에게 등록되며, 때가 되면 이 아들들이 생명을 창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성들에게 보내진다.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 출현하기까지의 전체 기간은 인간-

INTRODUCTION

52:0.1 (589.1) FROM the inception of life on an evolutionary planet to the time of its final flowering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re appear upon the stage of world action at least seven epochs of human life. These successive ages are determined by the planetary missions of the divine Sons, and on an average inhabited world these epochs appear in the following order:

52:0.2 (589.2) 1. Pre-Planetary Prince Man.

52:0.3 (589.3) 2. Post-Planetary Prince Man.

52:0.4 (589.4) 3. Post-Adamic Man.

52:0.5 (589.5) 4. Post-Magisterial Son Man.

52:0.6 (589.6) 5. Post-Bestowal Son Man.

52:0.7 (589.7) 6. Post-Teacher Son Man.

52:0.8 (589.8) 7. The Era of Light and Life.

52:0.9 (589.9) The worlds of space, as soon as they are physically suitable for life, are placed on the registry of the Life Carriers, and in due time these Sons are dispatched to such planets for the purpose of initiating life. The entire period from life

이전 시대로 구분되며 이 이야기 안에서 고려되는 연속적인 필사자 신(新)시대들을 앞선다.

initiation to the appearance of man is designated the prehuman era and precedes the successive mortal epochs considered in this narrative.

제 1 장. 원시인

동물 차원으로부터 사람이 창발한 때—그가 창조자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은 원시인이라고 불린다. 원시인에는 여섯 가지 기본 유형 또는 종족들이 있으며, 초기의 이 민족들은 스펙트럼 색조의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색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는 세계들마다 크게 다른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15만년부터 100만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적색, 오렌지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은 대략적으로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발전시킬 때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때 사람은 똑바로 서는 데에 익숙해 있다.

원시인은 힘센 사냥꾼이요 사나운 투사이다. 이 시대의 법칙은 물리적 적자생존(適者生存)이다; 이 시대의 정치 체제는 전적으로 부족적(部族的)이다. 많은 세계들의 경우, 유란시아에서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인종적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진화 종족들 중 일부가 멸종된다. 살아남은 종족들은 대개 그 후에 아담의-민족들, 나중에 수입되는 보라색 종족들과 섞인다.

뒤이어 따라오는 문명에 비취어 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두우며 피로 물든 장(章)이다. 밀림의 윤리와 원시산림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와 보다 높은 영적 발달의 후기 섭리시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실험적인-아닌 세계들의 경우, 이 신(新)시대는 유란시아에서의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길고도 유별나게 혹독한 투쟁과 매우 다르다. 너희가 자신의 최초 세상 체험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되면, 너희는 진화 세계들에서의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의 이유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파라다이스 경로를 따라 전진함에 따라 너희는 길으로 보기에 생소한 이 행위들의 지혜를 점점 더 납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발한 초기 시대들의 모든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업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진화 세계의 연대기(年代記) 속에서 찬란한 그리고 심지어 영웅적인 한 장(章)을 대표한다.

초기 진화에서는 사람이 유색의 창조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시적 필사자들은 동굴에 거주하거나 절벽에서 산다. 또한 그들은 큰 나무에 조잡한 오두막을 짓기도 한다.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행성들이 비교적

1. PRIMITIVE MAN

52:1.1 (589.3) From the time of man's emergence from the animal level — when he can choose to worship the Creator —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mortal will creatures are called *primitive men*. There are six basic types or races of primitive men, and these early peoples successively appear in the order of the spectrum colors, beginning with the red. The length of time consumed in this early life evolution varies greatly on the different worlds, ranging from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to over one million years of Urantia time.

52:1.2 (589.4)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and indigo — begin to appear about the time that primitive man is developing a simple language and is beginning to exercise the creative imagination. By this time man is well accustomed to standing erect.

52:1.3 (589.5) Primitive men are mighty hunters and fierce fighters. The law of this age is the physical survival of the fittest; the government of these times is wholly tribal. During the early racial struggles on many worlds some of the evolutionary races are obliterated, as occurred on Urantia. Those who survive are usually subsequently blended with the later imported violet race, the Adamic peoples.

52:1.4 (589.6) In the light of subsequent civilization, this era of primitive man is a long, dark, and bloody chapter. The ethics of the jungle and the morals of the primeval forests are not in keeping with the standards of later dispensations of revealed religion and higher spiritual development. On normal and nonexperimental worlds this epo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olonged and extraordinarily brutal struggles which characterized this age on Urantia. When you have emerged from your first world experience, you will begin to see why this long and painful struggle on the evolutionary worlds occurs, and as you go forward in the Paradise path, you will increasingly understand the wisdom of these apparently strange doings. But notwithstanding all the vicissitudes of the early ages of human emergence, the performances of primitive man represent a splendid, even a heroic, chapter in the annals of an evolutionary world of time and space.

52:1.5 (590.1) Early evolutionary man is not a colorful creature. In general, these primitive mortals are cave dwellers or cliff residents. They also build crude huts in the large trees. Before they acquire a high order of intelligence, the planets are

큰 유형의 동물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초기에 인간들은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독창적인 상상력의 증가와 도구의 개발과 함께, 진화하는 사람은 곧 비교적 크고 더욱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정복하게 된다. 또한 초기 종족들은 비교적 큰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 거대한 새들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통-크기 사람들을 쉬지 않고 500 마일 이상 운송할 수 있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이 새들은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능을 소유하는 때부터 큰 서비스에 활용하는데, 영역의 언어들 중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새들은 가장 지능적이고, 매우 유순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애롭다. 그러한 여객용 새들은 유란시아에서 사라진지 오래 되었지만, 너희의 초기 조상들은 그들의 봉사를 즐겼다.

윤리적 판단, 도덕적 의지에 대한 사람의 성취는 대개 초기 언어의 출현과 일치한다. 인간적 차원이 달성되면, 필사자 의지가 이렇게 창발한 후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절자들의 일시적 내주(內住)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죽음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로서 정당하게 선택되고 그 다음의 부활과 영 융합을 위해 천사장들에 의해 봉인된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영주와 같이 오며, 영역의 세대적 판결은 영주의 도착과 동시에 발생한다.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는 모든 필사자들은 잠재적 경배자들이다; 그들은 “참 빛에 의해 비추어져”왔고, 그들은 신성과의 상호보답적인 접촉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초기 또는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적 미신이 가미된 동물적 두려움의 연속이다. 유란시아 종족들 속에 미신이 살아 있는 것은 물질적 진보 안에서의 너희의 다른 훌륭한 성취들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진화적 발달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의 이 두려움의 종교는 이 원시적 창조체들의 불같은 기질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은 행성영주와 그의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계시된 종교의 씨앗들을 나중에 심기 위한 토양이며 문명화의 선구자이다.

사람이 직립(直立)하게 된 때로부터 10만년 이내에, 행성영주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교적 소수의 개별존재들이 그렇게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의지가 기능한다는 생명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 체계 주권자가 파견한다. 원시 필사자들은 보통 행성영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의 참모진을 환영한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들이 만류하지 않는다면 경배를 드리려고까지 한다.

sometimes overrun with the larger types of animals. But early in this era mortals learn to kindle and maintain fire, and with the increase of inventive imagination and the improvement in tools, evolving man soon vanquishes the larger and more unwieldy animals. The early races also make extensive use of the larger flying animals. These enormous birds are able to carry one or two average-sized men for a nonstop flight of over five hundred miles. On some planets these birds are of great service since they possess a high order of intelligence, often being able to speak many words of the languages of the realm. These birds are most intelligent, very obedient, and unbelievably affectionate. Such passenger birds have been long extinct on Urantia, but your early ancestors enjoyed their services.

52:1.6 (590.2) Man's acquirement of ethical judgment, moral will, is usually coincident with the appearance of early language. Upon attaining the human level, after this emergence of mortal will, these beings become receptive to the temporary indwelling of the divine Adjusters, and upon death many are duly elected as survivors and sealed by the archangels for subsequent resurrection and Spirit fusion. The archangels always accompany the Planetary Princes, and a dispensational adjudication of the realm is simultaneous with the prince's arrival.

52:1.7 (590.3) All mortals who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are potential worshipers; they have been “lighted by the true light,” and they possess capacity for seeking reciprocal contact with divinity. Nevertheless, the early or biologic religion of primitive man is largely a persistence of animal fear coupled with ignorant awe and tribal superstition. The survival of superstition in the Urantia races is hardly complimentary to your evolutionary development nor compatible with your otherwise splendid achievements in material progress. But this early fear religion serves a very valuable purpose in subduing the fiery tempers of these primitive creatures. It is the forerunner of civilization and the soil for the subsequent planting of the seeds of revealed religion by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ministers.

52:1.8 (590.4) Within one hundred thousand years from the time man acquires erect posture, the Planetary Prince usually arrives, having been dispatched by the System Sovereign upon the report of the Life Carriers that will is functioning, even though comparatively few individuals have thus developed. Primitive mortals usually welcome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visible staff; in fact, they often look upon them with awe and reverence, almost with worshipfulness, if they are not restrained.

제 2 장. 행성영주 이후의 사람

2. POST-PLANETARY PRINCE MAN

행성영주의 도착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지구상에 정부가 태어나고 진보된 부족 신(新)시대가 달성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수 천 년 동안 위대한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조건아래에서의 필사자들은 이 시기 동안 문명의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야만 상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거주민이 사는 세계의 생명이 반역에 의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적인 행성에 있는 그러한 체제에 관한 개념을 전혀 또는 거의 가질 수 없다.

이 세대의 평균 길이는 약 50만년인데, 어떤 경우는 좀 더 길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짧다. 이 시기 동안 행성은 체계의 순환회로들 안에 정착하며, 세라핌천사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조력자들의 할당된 숫자 전체가 그것에 대한 관리-행정에 배정된다. 생각 조절자들이 점점 더 많이 도래하고,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은 필사자 감독에 대한 그들의 체제를 확장시킨다.

행성영주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두려움과 무지의 진화된 종교가 널리 퍼진다. 영주와 그의 참모진은 좀 더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관한 첫 번째 계시를 준다. 계시된 종교에 관한 이 첫 번째 계시는 매우 단순하며, 그것들은 보통 지역체계의 관련사들에 국한되어 있다. 종교는 전적으로 행성영주의 도착 이전의 진화적 과정이다. 그 후에 종교는 누진적인 계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진화적 성장에 의해 진보한다. 각각의 섭리시대, 각각의 필사자 신(新)시대는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의 더욱 커지게 된 표현을 받아들인다.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종교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의 진화는 영적 발전에 대한 그들의 비율과 종교적 계시의 범위를 주로 결정한다.

이 섭리시대는 하나의 영적 여명을 목격하며, 그리고 다른 종족들과 그들의 다양한 부족들이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생각에서의 특별화된 체계들을 발달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모든 종족 종교들에 두루 두개의 기질이 한결같이 흐른다: 원시인의 초기적인 두려움과 이후의 행성영주의 후대 계시들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유란시아인들은 행성 진보의 이 단계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창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너희가 이 공부를 추적하면서 그에 따라, 너희 세계가 진화적인 진보와 발달에서의 평균 과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너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식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성영주는 “평화의 영주”가 아니다. 인종 투쟁들과 부족 전쟁들은 이 세대 동안 계속 되지만, 횡수와 심각성은 줄어든다. 이것은 인종 확산의 위대한 시대이며, 그것은 격렬한 민족주의 시대의 정점을 이룬다. 색깔은 부족 그리고 민족 집단화의 기본이며, 인종들마다 다른 언어들을 발달시키곤 한다. 각각의 확대하는 필사자 집단은 고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리는 많

52:2.1 (591.1) With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 new dispensation begins. Government appears on earth, and the advanced tribal epoch is attained. Great social strides are made during a few thousand years of this regime. Under normal conditions mortals attain a high state of civilization during this age. They do not struggle so long in barbarism as did the Urantia races. But life on an inhabited world is so changed by rebellion that you can have little or no idea of such a regime on a normal planet.

52:2.2 (591.2) The average length of this dispensation is around five hundred thousand years, some longer, some shorter. During this era the planet is established in the circuits of the system, and a full quota of seraphic and other celestial helpers is assigned to its administration. The Thought Adjusters come in increasing numbers, and the seraphic guardians amplify their regime of mortal supervision.

52:2.3 (591.3) When the Planetary Prince arrives on a primitive world, the evolved religion of fear and ignorance prevails. The prince and his staff make the first revelations of higher truth and universe organization. These initial presentations of revealed religion are very simple, and they usually pertain to the affairs of the local system. Religion is wholly an evolutionary process prior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Subsequently, religion progresses by graduated revelation as well as by evolutionary growth. Each dispensation, each mortal epoch, receives an enlarged presentation of spiritual truth and religious ethics. The evolution of the religious capacity of receptivity in the inhabitants of a world largely determines their rate of spiritual advancement and the extent of religious revelation.

52:2.4 (591.4) This dispensation witnesses a spiritual dawn, and the different races and their various tribes tend to develop specialized systems of religious and philosophic thought. There uniformly run through all of these racial religions two strains: the early fears of primitive men and the later revelations of the Planetary Prince. In some respects Urantians do not seem to have wholly emerged from this stage of planetary evolution. As you pursue this study, you will the more clearly discern how far your world departs from the average course of evolutionary progress and development.

52:2.5 (591.5) But the Planetary Prince is not “the Prince of Peace.” Racial struggles and tribal wars continue over into this dispensation but with diminishing frequency and severity. This is the great age of racial dispersion, and it culminates in a period of intense nationalism. Color is the basis of tribal and national groupings, and the different races often develop separate languages. Each

은 언어들의 실존에 의해 장려된다. 여러 인종들의 통일이 있기 전에 그들의 잔인한 전쟁은 때로 전체 민족들의 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렌지색과 녹색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한 소멸에 해당된다.

평균적인 세계들의 경우, 영주의 통치 후반부 동안, 국가적 생활이 부족적 조직을 대체하거나 또는 존재하는 부족적 집단화에 참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주의 신(新)시대의 위대한 사회적 성취는 가정생활의 창발이다. 이전까지는 인간관계들이 주로 부족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형태를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성(性)적 평등 실현의 세대이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 또 다른 행성들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이 시대 동안 정상적인 세계들은 성(性)의 충분한 평등을 이룩하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상을 보다 더욱 충분히 실현하는 것에 예비수단이 된다. 이것은 가정의 황금기의 여명이다. 종족 통치의 개념은 민족 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원적(二元的) 개념에게 점진적으로 길을 내어준다.

이 시기 동안에 농업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개념의 성장은 사냥꾼의 방랑과 불안정한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정된 거주지들과 땅 경작의 실천 관행이 점차적으로 수립된다. 동물을 길들이기와 가사(家事)의 발달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생물학적 진화의 정상에 도달하면, 문명화의 높은 차원이 달성되지만, 기계 계층의 발달은 거의 없으며; 발명은 계속되는 시대의 특징이다.

인종들은 세련된 상태가 되고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육체적 완전과 지적 능력의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적인 세계의 초기 발달은 비교적 낮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균형 잡힌 감소와 함께 비교적 높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증가를 진행시키는 계획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는다. 너희 초기 민족들이 이들 유형들을 것처럼 구별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지금-현재 유란시아 종족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결함이 있고 퇴보하는 개별 존재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영주의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별 존재들의 증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다. 두 번째 아들들, 아담들의 도착 훨씬 이전에, 대부분의 세계들은 종족 정화의 임무에 심각하게 착수하는데, 유란시아 사람들은 아직 심각하게 체험하지 못한 어떤 것이다.

종족 개선의 이러한 문제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인간 진화에서의 이러한 초기 시대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수행되지는 않는다. 부족 갈등과 인종 생존에서의 역센 경쟁이 있는 이전의 시대는 비정상

expanding group of mortals tends to seek isolation. This segregation is favored by the existence of many languages. Before the unification of the several races their relentless warfare sometimes results in the obliteration of whole peoples; the orange and green men are particularly subject to such extinction.

52:2.6 (591.6) On average worlds,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prince's rule, national life begins to replace tribal organization or rather to be superimposed upon the existing tribal groupings. But the great social achievement of the prince's epoch is the emergence of family life. Heretofore, human relationships have been chiefly tribal; now, the home begins to materialize.

52:2.7 (591.7) This is the dispensation of the realization of sex equality. On some planets the male may rule the female; on others the reverse prevails. During this age normal worlds establish full equality of the sexes, this being preliminary to the fuller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home life. This is the dawn of the golden age of the home. The idea of tribal rule gradually gives way to the dual concept of national life and family life.

52:2.8 (592.1) During this age agriculture makes its appearance. The growth of the family idea is incompatible with the roving and unsettled life of the hunter. Gradually the practices of settled habitations and the cultivation of the soil become established.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and the development of home arts proceed apace. Upon reaching the apex of biologic evolution, a high level of civilization has been attained, but there is little development of a mechanical order; invention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ucceeding age.

52:2.9 (592.2) The races are purified and brought up to a high state of physical perfection and intellectual strength before the end of this era. The early development of a normal world is greatly helped by the plan of promoting the increase of the higher types of mortals with proportionate curtailment of the lower. And it is the failure of your early peoples to thus discriminate between these types that accounts for the presence of so many defective and degenerate individuals among the present-day Urantia races.

52:2.10 (592.3) One of the great achievements of the age of the prince is this restriction of the multiplication of mentally defective and socially unfit individuals. Long before the times of the arrival of the second Sons, the Adams, most worlds seriously address themselves to the tasks of race purification, something which the Urantia peoples have not even yet seriously undertaken.

52:2.11 (592.4) This problem of race improvement is not such an extensive undertaking when it is attacked at this early date in human evolution. The preceding period of tribal struggles and rugged

적이고 불완전한 혈통들 대부분을 제거해 왔다. 바보는 원시적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부족적 사회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들 중 희망 없는 결함을 가진 혈통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영속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너희 문명의 잘못된 정서이다.

퇴보된 인간 존재들, 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도 열등한 필사자들에게 쓸데없는 동정심을 기울이는 일은 애정도 아니고 이타심도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진화 세계들에서도 개별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진화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퇴보된 혈통들을 존속시키지 않으면서 이타적인 정서와 사심-없는 필사자 사명활동을 하는 모든 고귀한 특색들의 충만한 실행을 위해 제공되는 수많은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자신들의 도덕적 유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자신들의 영적 권리를 언제까지나 파괴당한 불운하고도 가난한 개별존재들을 위하여 인내심을 실천하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제 3 장. 아담-이후의 사람

진화적 삶의 기원적 힘이 그것의 생물학적 과정을 진행할 때, 사람이 동물적 발달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아들관계의 두 번째 계층이 도착하며, 은혜와 보살핌의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진화 세계들에게 해당된다. 진화적 생명의 가능한 최고 차원이 달성되었을 때, 원시인이 생물학적 척도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한 물질아들과 딸이 행성에 항상 나타나는데, 체계 주권자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

생각 조절자들이 아담의-이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증여되며, 이 필사자들 중 끊임없이 증강되는 숫자가 그 후의 조절자 융합을 위한 능력을 달성한다. 하강하는 아들들로서 활동하는 동안, 아담들은 조절자들을 소유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성 자손들—직접적인 그리고 섞인—은 때가 되면 신비 감시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후보자들이 된다. 아담의-이후 시대가 종료되면 행성은 천상의 사명활동자들의 충분한 소유가 된다; 오직 융합 조절자들만이 아직 우주적으로 증여되지 않았다.

문명화에 있어서 사냥꾼 그리고 목자(牧者)의 단계로부터 농업 그리고 원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완성하도록 진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리하여 나중에 도시 그리고 산업 보조물이 문명화에 추가되는 것이 아담의-통치체제의 1차 목적이다. 생물학적 제고자들의 이 세대에 해당하는 1만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

competition in race survival has weeded out most of the abnormal and defective strains. An idiot does not have much chance of survival in a primitive and warring tribal social organization. It is the false sentiment of your partially perfected civilizations that fosters, protects, and perpetuates the hopelessly defective strains of evolutionary human stocks.

52:2.12 (592.5) It is neither tenderness nor altruism to bestow futile sympathy upon degenerated human beings, unsalvable abnormal and inferior mortals. There exist on even the most normal of the evolutionary worlds sufficient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numerous social groups to provide for the full exercise of all those noble traits of altruistic sentiment and unselfish mortal ministry without perpetuating the socially unfit and the morally degenerate strains of evolving humanity. There is abundant opportunity for the exercise of tolerance and the function of altruism in behalf of those unfortunate and needy individuals who have not irretrievably lost their moral heritage and forever destroyed their spiritual birthright.

3. POST-ADAMIC MAN

52:3.1 (592.6) When the original impetus of evolutionary life has run its biologic course, when man has reached the apex of animal development, there arrives the second order of sonship, and the second dispensation of grace and ministry is inaugurated. This is true on all evolutionary worlds. When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evolutionary life has been attained, when primitive man has ascended as far as possible in the biologic scal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lways appear on the planet, having been dispatched by the System Sovereign.

52:3.2 (593.1) Thought Adjusters are increasingly bestowed upon the post-Adamic men, and in constantly augmented numbers these mortals attain capacity for subsequent Adjuster fusion. While functioning as descending Sons, the Adams do not possess Adjusters, but their planetary offspring — direct and mixed — become legitimate candidates for the reception, in due time, of the Mystery Monitors. By the termination of the post-Adamic age the planet is in possession of its full quota of celestial ministers; only the fusion Adjusters are not yet universally bestowed.

52:3.3 (593.2) It is the prime purpose of the Adamic regime to influence evolving man to complete the transit from the hunter and herder stage of civilization to that of the agriculturist and horticulturist, to be later supplemented by the appearance of the urban and industrial adjuncts to civilization. Ten thousand years of this dispensation of the biologic uplifters is sufficient to

분하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들의 공동 지혜의 그러한 관리-행정에 해당되는 2만 5천년은 보통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을 위하여 구체를 무르익게 한다.

이 시대에는 대개 부적합한 자들의 제거와 인종적 혈통들에 대한 더욱 증진된 정화 작업의 완성이 있게 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결집이 있는 야만적 경향들이 영역의 재생산하는 계통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다.

아담의-자손은 진화적 인종들 중 열등한 혈통들과는 결코 피를 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진화적 민족들과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이 아니다. 이 인종-개선 계획은 그들의 후손의 임무이다. 그러나 물질아들과 딸의 후손은 인종적-혼합 사망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세대 동안 동원된다.

필사 종족들에게 아담의-생명 원형질이 선물로 주어진 결과는 지적 능력의 즉각적인 향상과 영적 진보의 촉진이다. 거기에는 대개 어떤 육신적 증진도 따라온다. 평균적인 세계의 경우 아담의-이후 세대는 위대한 발명과 에너지 통제 그리고 기계적 발달의 시대이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의 출현과 천연적 힘들에 대한 통제의 시대이다; 행성의 탐험과 최종적 정복의 황금기이다. 세계의 물질적 진보 대부분은 물질적 과학의 발달이 시작되는 이 시기 동안 발생되는데, 유란시아가 현재 체험하는 것과 같은 신(新)시대이다. 너희의 세계는 하나의 충만한 세대이며 평균적인 행성 시간표보다 훨씬 뒤져 있다.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아담의-섭리시대가 끝나기 전에 종족들이 실천적으로 혼합되는데, 그리하여 “하느님이 한 피로 모든 나라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말로 선포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아들이 “한 색으로 모든 민족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피가 섞인 종족의 색깔은 보라색 바탕에 올리브색이 깃들여 있는 어떤 것, 구체들의 인종적 “백색”이다.

원시인은 주로 육식성이다; 물질아들과 딸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은 때로는 그들의 후예들 전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로 남아 있더라도 대개 잡식 차원으로 내려간다. 아담의-이후 인종들의 이 이중적 기원은 피가 섞인 그러한 인간 계통들이 어떻게 해서 초식성 동물 집단과 육식성 동물 집단들 모두에 속하는 해부학적 흔적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준다.

인종적 혼합이 시작된 지 1만년 이내에, 결과적인 계통들은 해부학적 혼혈의 다양한 정도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혈통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조상의 흔적을 더 많이 함유하고, 다른 혈통들은 그

effect a marvelous transformation. Twenty-five thousand years of such an administration of the conjoint wisdom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s usually ripens the sphere for the advent of a Magisterial Son.

52:3.4 (593.3) This age usually witnesses the completion of the elimination of the unfit and the still further purification of the racial strains; on normal worlds the defective bestial tendencies are very nearly eliminated from the reproducing stocks of the realm.

52:3.5 (593.4) The Adamic progeny never amalgamate with the inferior strains of the evolutionary races. Neither is it the divine plan for the Planetary Adam or Eve to mate, personally, with the evolutionary peoples. This race-improvement project is the task of their progeny. But the offspring of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are mobilized for generations before the racial-amalgamation ministry is inaugurated.

52:3.6 (593.5) The result of the gift of the Adamic life plasm to the mortal races is an immediate upstepping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an acceleration of spiritual progress. There is usually some physical improvement also. On an average world the post-Adamic dispensation is an age of great invention, energy control, and mechanical development. This is the era of the appearance of multiform manufacture and the control of natural forces; it is the golden age of exploration and the final subduing of the planet. Much of the material progress of a world occurs during this time of the inaugu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sciences, just such an epoch as Urantia is now experiencing. Your world is a full dispensation and more behind the average planetary schedule.

52:3.7 (593.6) By the end of the Adamic dispensation on a normal planet the races are practically blended, so that it can be truly proclaimed that “God has made of one blood all the nations,” and that his Son “has made of one color all peoples.” The color of such an amalgamated race is somewhat of an olive shade of the violet hue, the racial “white” of the spheres.

52:3.8 (593.7) Primitive man is for the most part carnivorous;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do not eat meat, but their offspring within a few generations usually gravitate to the omnivorous level, although whole groups of their descendants sometimes remain nonflesh eaters. This double origin of the post-Adamic races explains how such blended human stocks exhibit anatomic vestiges belonging to both the herbivorous and carnivorous animal groups.

52:3.9 (593.8) Within ten thousand years of racial amalgamation the resultant stocks show varying degrees of anatomic blend, some strains carrying more of the marks of the nonflesh-eating ancestry,

들의 육식성 진화 조상의 독특한 특색들과 육신적 특징들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 세계 종족들 대부분은 곧 잡식성을 갖게 되는데, 동물계와 식물계 둘 모두로부터의 광범위한 음식물들을 섭취한다.

아담의-이후 신(新)시대는 국제주의 시대이다. 인종 혼합의 과업이 거의 완성됨과 함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사람의 형제신분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리 정부가 군주적 또는 부계(父系) 형태의 통치체제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교육 체계가 세계에 퍼지게 되고, 인종들의 언어들이 보라색 민족의 방언에게 양보한다. 보편적 평화와 협동은 인종들이 매우 잘 혼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할 때까지 달성되기 힘들다.

아담의-이후 시대의 마감하는 세기들 동안,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달하며, 이 범세계적 계몽은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에 대한 신호이다. 이 시대의 최고 발달은 지적 실체들, 참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민족적 특성이 줄어들고 점점 더 행성 문제가 되어 간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이 시기들의 특징을 이루며, 별자리들의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관련사들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진리는 별자리들의 관리-행정에 이르기까지 계시된다.

위대한 윤리적 진보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 사람의 형제신분이 사회의 목표이다. 범세계적 평화—인종 갈등과 민족적 증오의 중단—은 아들관계의 세 번째 계층, 치안법관 아들의 출현을 위한 행성 성숙의 척도이다.

제 4 장. 치안법관 아들—이후의 사람

정상적이고 충성스러운 행성들의 경우에 이 시대는 피가 섞이고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필사 종족들과 함께 시작한다. 거기에는 인종 또는 색깔의 문제들이 없으며; 정말로 모든 나라들과 인종들이 한 피에 속한다. 사람의 형제신분이 번창하고, 나라들은 평화와 평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배우고 있다. 그러한 세계는 위대하고 전성기에 달한 지적 발전 벽두에서 있다.

진화 세계가 그렇게 해서 치안법관 시대를 위해 성숙하게 될 때, 높은 계층의 아보날 아들들 중 하나가 치안법관 임무에 모습을 드러낸다. 행성영주와 물질아들들은 지역우주 기원에 속한다; 치안법관 아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온다.

파라다이스 아보날들이 사법 활동을 위해 오직 세대 심판관들로서 필사자 구체들에게로 올

others exhibiting more of the distinguishing trait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carnivorous evolutionary progenitors. The majority of these world races soon become omnivorous, subsisting upon a wide range of viands from both the animal and vegetable kingdoms.

52:3.10 (594.1) The post-Adamic epoch is the dispensation of internationalism. With the near completion of the task of race blending, nationalism wanes, and the brotherhood of man really begins to materialize. Representative government begins to take the place of the monarchical or paternal form of rulership. The educational system becomes world-wide, and gradually the languages of the races give way to the tongue of the violet people. Universal peace and co-operation are seldom attained until the races are fairly well blended, and until they speak a common language.

52:3.11 (594.2) During the closing centuries of the post-Adamic age there develops new interest in art, music, and literature, and this world-wide awakening is the signal for the appearance of a Magisterial Son. The crowning development of this era is the universal interest in intellectual realities, true philosophy. Religion becomes less nationalistic, becomes more and more a planetary affair. New revelations of truth characterize these ages, and the Most Highs of the constellations begin to rule in the affairs of men. Truth is revealed up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constellations.

52:3.12 (594.3) Great ethical advancement characterizes this era; the brotherhood of man is the goal of its society. World-wide peace — the cessation of race conflict and national animosity — is the indicator of planetary ripeness for the advent of the third order of sonship, the Magisterial Son.

4. POST-MAGISTERIAL SON MAN

52:4.1 (594.4) On normal and loyal planets this age opens with the mortal races blended and biologically fit. There are no race or color problems; literally all nations and races are of one blood. The brotherhood of man flourishes, and the nations are learning to live on earth in peace and tranquillity. Such a world stands on the eve of a great and culminating intellectual development.

52:4.2 (594.5) When an evolutionary world becomes thus ripe for the magisterial age, one of the high order of Avonal Sons makes his appearance on a magisterial mission.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Sons are of local universe origin; the Magisterial Son hails from Paradise.

52:4.3 (594.6) When the Paradise Avonals come to the mortal spheres on judicial actions, solely as

때, 그들은 결코 육신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치안법관 임무들을 떠고 올 때에는, 적어도 처음 한 번은, 그들이 항상 육신화 하는데, 그들은 출생을 체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영역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 그들이 특정 행성에서 통치자로서 남아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세대 동안 살 수도 있다. 그들의 사명이 완료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 삶들을 완료하고 신성한 아들관계의 이전 지위로 돌아간다.

각각의 새로운 세대는 계시된 종교의 지평선을 확장하며, 치안법관 아들들은 지역우주 그리고 그것에 소속된 모든 것들의 관련사들을 묘사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계시를 확장한다.

치안법관 아들의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종족들은 곧 자신들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한다. 어떤 사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 작업은 너희 시간으로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러한 윤리적이고 지능적인 필사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완전히 확실하다. 그러한 세련된 민족들은 자아-개선과 행성 진보를 위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안다. 이 시대에는 덜 적응되고 미약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개별존재들 가운데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인종적 계통들의 추가적 정화 작업이 있다.

종족들의 정치적 정부와 사회적 관리-행정이 계속 개선되는데, 자아-관리가 이 시대의 종료와 함께 비교적 잘 수립된다. 자아-관리에 의해 우리는 대리 정부의 가장 높은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들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도자들과 통치자들만을 승진시키고 경의를 표한다.

이 신(新)시대 동안 세계 필사자들 대부분 속에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신성한 감시자들의 증여는 항상 보편적이지 않다. 융합운명의 조절자들은 아직 모든 행성 필사자들에게 증여되지 않았다; 의지적 창조체들에게는 신비 감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세대의 마감하는 시대들 동안, 사회는 더욱 단순하게 된 살아가는 형태들로 돌아간다. 진보하는 문명의 복잡한 본성은 그것의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필사자들은 더 자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를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 각각의 신(新)시대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더 높은 배움이 꽃피는 시대이다. 물리적 학문들은 최고의 발달 경지에 이미 도달하였다. 이상적인 세계들의 경우가 이 시대가 끝날 때 위대한 종교적 각성, 범세계적인 영적 깨우침이 완성된다. 그리고 종족들의 영적 본성들의 이 광범위한 각성은 증여 아들의 도약을 향한 그리고 다섯 번째 필사자 신(新)시대의 출발을 향한 신호이다.

많은 세계들의 경우 행성이 한 명의 치안법관 임무에 의한 증여 아들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dispensation adjudicators, they are never incarnated. But when they come on magisterial missions, at least the initial one, they are always incarnated, though they do not experience birth, neither do they die the death of the realm. They may live on for generations in those cases where they remain as rulers on certain planets. When their missions are concluded, they yield up their planetary lives and return to their former status of divine sonship.

52:4.4 (594.7) Each new dispensation extends the horizon of revealed religion, and the Magisterial Sons extend the revelation of truth to portray th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 and all its tributaries.

52:4.5 (594.8) After the initial visitation of a Magisterial Son the races soon effect their economic liberation. The daily work required to sustain one's independence would be represented by two and one-half hours of your time. It is perfectly safe to liberate such ethical and intelligent mortals. Such refined peoples well know how to utilize leisure for self-improvement and planetary advancement. This age witnesses the further purification of the racial stocks by the restriction of reproduction among the less fit and poorly endowed individuals.

52:4.6 (595.1) The political government and social administration of the races continue to improve, self-government being fairly well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age. By self-government we refer to the highest typ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Such worlds advance and honor only those leaders and rulers who are most fit to bear soci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52:4.7 (595.2) During this epoch the majority of the world mortals are Adjuster indwelt. But even yet the bestowal of divine Monitors is not always universal. The Adjusters of fusion destiny are not yet bestowed upon all planetary mortals; it is still necessary for the will creatures to choose the Mystery Monitors.

52:4.8 (595.3) During the closing ages of this dispensation, society begins to return to more simplified forms of living. The complex nature of an advancing civilization is running its course, and mortals are learning to live more naturally and effectively. And this trend increases with each succeeding epoch. This is the age of the flowering of art, music, and higher learning. The physical sciences have already reached their height of development. The termination of this age, on an ideal world, witnesses the fullness of a great religious awakening, a world-wide spiritual enlightenment. And this extensive arousal of the spiritual natures of the races is the signal for the arrival of the bestowal Son and for the inauguration of the fifth mortal epoch.

52:4.9 (595.4) On many worlds it develops that the planet is not made ready for a bestowal Son by

된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 치안법관 아들들의 계승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은 행성이 증여 아들의 선물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후의 임무들에 있어서 치안법관 아들들은 육신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치안법관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냐에 상관없이—그리고 그들은 증여 아들 이후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그 각각의 출현은 한 세대의 끝과 다른 세대의 시작을 표시한다.

치안법관 아들들의 이 세대들은 유란시아 시공간으로 2만 5천년부터 5만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때로는 그러한 신(新)시대가 매우 짧으며 드문 경우에는 더 길기도 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동일한 이 치안법관 아들들 중 하나가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로써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증여 아들 이후의 사람

지적 그리고 영적 발달의 특정한 기준이 어떤 거주 세계에서 달성될 때, 한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항상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에 그는 종족들이 지적 발달 그리고 윤리적 달성의 최고 차원들로 상승을 완료할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증여 아들이, 더군다나 너희들 자신을 만든 창조자 아들이, 아담의-섭리시대의 마감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세계들이 영성화를 위해 성숙할 때, 증여 아들이 도착한다. 이들 아들들은 치안법관 또는 아보날 계층에 항상 속하는데, 예외인 경우는, 각 지역우주마다 한 번, 진화 세계에서 창조자 아들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준비할 때, 네바돈의 미가엘이 너희 필사 종족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발생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거의 천만 개 중에서 오직 한 세계만이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다른 세계들은 아보날 계층의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에 의해 영적으로 진보한다.

증여 아들이 높은 교육 문화의 세계에 도착하며, 영적으로 훈련되고 진보된 훈련에 융화되도록 그리고 증여 임무를 인정하도록 준비된 종족과 만난다. 이때는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의 전 세계적 추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시대이다. 이 세대의 도덕적 열정은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통찰이며 영적 실체와의 교체이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초우주를 포함할 정도까지 확장된다. 교육과 정부의 전반적으로 새로운 체계들이 이전 시대들의 조잡한 체계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삶에 대한 기쁨이 새로운 색을 띠고, 생명의 반응들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고양된 음조와 음색을 갖는다.

one magisterial mission; in that event there will be a second, even a succession of Magisterial Sons, each of whom will advance the races from one dispensation to another until the planet is made ready for the gift of the bestowal Son. On the second and subsequent missions the Magisterial Sons may or may not be incarnated. But no matter how many Magisterial Sons may appear — and they may also come as such after the bestowal Son — the advent of each one marks the end of one dispensa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52:4.10 (595.5) These dispensations of the Magisterial Sons cover anywhere from twenty-five thousand to fifty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Sometimes such an epoch is much shorter and in rare instances even longer. But in the fullness of time one of these same Magisterial Sons will be born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5. POST-BESTOWAL SON MAN

52:5.1 (595.6) When a certain standard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is attained on an inhabited world, a Paradise bestowal Son always arrives. On normal worlds he does not appear in the flesh until the races have ascended to the highest levels of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ethical attainment. But on Urantia the bestowal Son, even your own Creator Son, appeared at the close of the Adamic dispensation, but that is not the usual order of events on the worlds of space.

52:5.2 (595.7) When the worlds have become ripe for spiritualization, the bestowal Son arrives. These Sons always belong to the Magisterial or Avonal order except in that case, once in each local universe, when the Creator Son prepares for his terminal bestowal on some evolutionary world, as occurred when Michael of Nebadon appeared on Urantia to bestow himself upon your mortal races. Only one world in near ten million can enjoy such a gift; all other worlds are spiritually advanced by the bestowal of a Paradise Son of the Avonal order.

52:5.3 (595.8) The bestowal Son arrives on a world of high educational culture and encounters a race spiritually trained and prepared to assimilate advanced teachings and to appreciate the bestowal mission. This is an age characterized by the world-wide pursuit of moral culture and spiritual truth. The mortal passion of this dispensation is the penetration of cosmic reality and communion with spiritual reality. The revelations of truth are extended to include the superuniverse. Entirely new systems of education and government grow up to supplant the crude regimes of former times. The joy of living takes on new color, and the reactions of life are exalted to

증여 아들은 어떤 세계의 필사 종족들의 영적 고양(高揚)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그는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을 확립 한다; 그의 삶은 파라다이스 진리가 필사 육신으로 육신화된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진리—정말로 진리의 영—이다.

유란시아에서 이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의 확립은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였다. 루시퍼 반란이 있었을 때의 유란시아 고통은 죽음에 이르러서 필사자들이 맨션세계들의 해안에 직접적으로 이르도록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을 중지도켰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날들 이전에는 모든 혼들이 섭리시대적 또는 천년마다의 특별 부활 때까지 잠을 잤다. 특별한 부활의 기회가 있기 전에는 심지어는 모세도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허용되지 않았는데, 몰락한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해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는 언제라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다시 모론시아 구체들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증여된 삶을 다 마친 후 세 번째 날에, 증여된 아들의 부활(復活)이 있게 되면, 그는 우주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상승하여, 증여 임무의 승인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며, 지역우주의 본부에 창조자 아들로 돌아온다. 그 결과 증여 아보날과 창조자 미가엘이 그들의 연관 영, 진리의 영을 증여 세계 속으로 보냈다. 이때가 “승리의 아들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여되는” 기회이다. 우주 어머니 영 역시 진리의 영의 이 증여에 참여하며, 그것과 동시에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 명령을 발한다. 그 후로 모든 정상-마음을 가진 그 세계의 의지적 창조체들은 그들이 도덕적 책임, 영적 선택의 나이를 성취하는 대로 조절자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증여 아보날이 증여 임무 후에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는 육신화 되지 않겠지만 “세라핌천사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증여 아들 이후 시대는 1만년부터 10만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섭리시대적 연대들 중 그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할당되는 시간은 없다. 이때는 위대한 윤리적 그리고 영적(靈的) 진보의 시기이다. 이 시대들의 영적인 영향 아래에서, 인간적 성격은 거대한 변혁을 거치고 괄목할만한 발달을 체험한다. 실천적 운영에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수의 교훈들은, 성격을 고귀하게 하고 문화(文化)를 증강시키는 그들의 섭리시대로 이루어진 증여-이전(以前) 아들들의 예비적 훈련을 마친, 필사자 세계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시대 동안 질병과 범죄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퇴화(退化)는 이미 선택적 번식에

heavenly heights of tone and timbre.

52:5.4 (596.1) The bestowal Son lives and dies for the spiritual uplift of the mortal races of a world. He establishes the “new and living way”; his life is an incarnation of Paradise truth in mortal flesh, that very truth — even the Spirit of Truth — in the knowledge of which men shall be free.

52:5.5 (596.2) On Urantia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and living way” was a matter of fact as well as of truth. The isolation of Urantia in the Lucifer rebellion had suspended the procedure whereby mortals can pass, upon death, directly to the shores of the mansion worlds. Before the day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all souls slept on until the dispensational or special millennial resurrections. Even Moses was not permitted to go over to the other side until the occasion of a special resurrection, the fallen Planetary Prince, Caligastia, contesting such a deliverance. But ev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Urantia mortals again may proceed directly to the morontia spheres.

52:5.6 (596.3) Upon the resurrection of a bestowal Son, on the third day after yielding up his incarnated life, he ascends to the right hand of the Universal Father, receives the assurance of the acceptance of the bestowal mission, and returns to the Creator Son at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ereupon the bestowal Avonal and the Creator Michael send their joint spirit, the Spirit of Truth, into the bestowal world. This is the occasion when the “spirit of the triumphant Son is poured out upon all flesh.” The Universe Mother Spirit also participates in this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and concomitant therewith there issues the bestowal edict of the Thought Adjusters. Thereafter all normal-minded that creatures of that world will receive Adjusters as soon as they attain the age of moral responsibility, of spiritual choice.

52:5.7 (596.4) If such a bestowal Avonal should return to a world after the bestowal mission, he would not incarnate but would come “in glory with the seraphic hosts.”

52:5.8 (596.5) The postbestowal Son age may extend from ten thousand to a hundred thousand years. There is no arbitrary time allotted to any of these dispensational eras. This is a time of great ethical and spiritual progress. Under the spiritual influence of these ages, human character undergoes tremendous transformations and experiences phenomenal development. It becomes possible to put the golden rule into practical operation. The teachings of Jesus are really applicable to a mortal world which has had the preliminary training of the prebestowal Sons with their dispensations of character ennoblement and culture augmentation.

52:5.9 (596.6) During this era the problems of disease and delinquency are virtually solved. Degeneracy

의해 크게 제거된다. 질병은 아담의-혈통들의 높은 저항 본질특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시대들의 물리학이 발견한 지능적 그리고 범세계적 적용에 의해 실천적으로 정복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년과 맞먹는 정도 이상으로 잘 향상된다.

이 신(新)시대에 두루 정부의 감독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참된 자아-관리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제한적인 법칙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된다. 국가적 저항의 군사 분과들이 사라지며; 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 한다.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부분이 땅 분배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직 한 종족, 한 언어, 그리고 한 종교만이 있다. 필사자 관련사들은 거의 이상에 가깝지만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제 6 장. 유란시아의 증여 이후 시대

증여 아들은 평화의 영주이다. 그는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적 평화의 세대이다;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활력이 되는 영향들은 너희의 증여 아들, 그리스도 미가엘의 도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적인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너희의 세계는 행성 행진에서 벗어나 있다. 너희들의 주(主)는,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출현이 유란시아에서 통상적인 평화의 주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들”이 있게 될 것임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배척하여 일어날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 그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진화의 세계들에서도 사람의 범세계적 형제신분의 실현이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처럼 혼동되고 무질서한 행성의 경우에 그러한 성취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훨씬 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받지 않은 사회적 진화는 영적으로 고립된 구체에서 그러한 행복한 결과들을 거의 성취할 수 없다. 종교적 계시는 유란시아에서의 형제신분 실현에 필수적이다. 예수는 영적 형제신분의 즉각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반면, 너희 세계에서의 사회적 형제신분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환들과 행성 조절의 성취에 많이 의존한다.

1. 사회적 형제우에 관계. 여행과 상업 그리고 경쟁적인 놀이를 통한 국제적 그리고 인종간의 사회적 접촉과 형제우에에서의 관계적-연합들의 증가. 공통 언어의 개발과 여러 언어 사용자들의 증가.

has already been largely eliminated by selective reproduction. Disease has been practically mastered through the high resistant qualities of the Adamic strains and by the intelligent and world-wide application of the discoveries of the physical sciences of preceding ages. The average length of life, during this period, climbs well above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52:5.10 (597.1) Throughout this epoch there is a gradual lessening of governmental supervision. True self-government is beginning to function; fewer and fewer restrictive laws are necessary. The military branches of national resistance are passing away; the era of international harmony is really arriving. There are many nations, mostly determined by land distribution, but only one race, one language, and one religion. Mortal affairs are almost, but not quite, utopian. This truly is a great and glorious age!

6. URANTIA'S POST-BESTOWAL AGE

52:6.1 (597.2) The bestowal Son is the Prince of Peace. He arrives with the messag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On normal worlds this is a dispensation of world-wide peace; the nations no more learn war. But such salutary influences did not attend the coming of your bestowal Son, Christ Michael. Urantia is not proceeding in the normal order. Your world is out of step in the planetary procession. Your Master, when on earth, warned his disciples that his advent would not bring the usual reign of peace on Urantia. He distinctly told them that there would be “wars and rumors of wars,” and that nation would rise against nation. At another time he said,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upon earth.”

52:6.2 (597.3) Even on normal evolutionary worlds the realization of the world-wide brotherhood of man is not an easy accomplishment. On a confused and disordered planet like Urantia such an achievement requires a much longer time and necessitates far greater effort. Unaided social evolution can hardly achieve such happy results on a spiritually isolated sphere. Religious revelation is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brotherhood on Urantia. While Jesus has shown the way to the immediate attainment of spiritual brotherhood, the realization of social brotherhood on your world depends much on the achievement of the following personal transformations and planetary adjustments:

52:6.3 (597.4) 1. *Social fraternity.* Multiplic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racial social contacts and fraternal associations through travel, commerce, and competitive play. Development of a common

가. 학생들, 선생들, 사업가들, 그리고 종교적 철학자들의 인종 간 그리고 국가 간 교류.

2. 지적 상호-교류. 형제신분은 거주자들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완화되지 않은 이기심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그리고 인종적 문학의 교류가 발생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인종은 모든 인종들의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하며, 각각의 나라는 모든 나라들의 느낌을 알아야만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동정심과 사랑의 기본적 태도와 양립될 수 없다.

3. 윤리적 각성.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인간적 편협의 부도덕과 동족상잔의 싸움에서의 죄 과함을 폭로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의식만이 국가적 절투와 인종적 시기심에서의 악을 폐기시킬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황금률을 살리는데 필수인 바로 그 영적 통찰력을 언제까지나 추구할 것이다.

4. 정치적 지혜. 감정적 성숙은 자아-통제에 필수적이다. 오직 감정적 성숙만이 전쟁의 야만스러운 중재 대신에 문명화된 판결의 국제적 기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들이 그들의 국가적 또는 인종적 집단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면서도, 인간성의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총명성은 궁극에는 자멸이다.—행성의 집단 생존을 보장하는 그 모든 항구성을 지닌 본질특성들을 파괴한다.

5. 영적 통찰력. 사람의 형제신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신분을 깨닫는 것에 입각한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신분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현재 인간성의 영적 변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회적 진화의 자연적인 추세를 촉진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위로부터의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필사자를 납득하고 사랑하도록 모든 각각의 필사자 혼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상호 납득과 형제우애에서의 사랑은 문명화를 이루는 초월 처방이요, 사람의 형제신분의 범세계적인 실현에서 힘찬 요소가 된다.

만약에 너희가 퇴보되고 혼동된 너희 세계로부터 현재 중여 아들 이후 시대에 있는 어떤 정상적 행성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너희는 너희 전승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너희가 옮겨진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민이 사는 필사자 구체의 정상적인 진화적 활동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할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들의 영역의 영적 순환회로들 안에 있으며, 그들은 우주 방송과 초우주의 반영성 봉사의 모든 편의를 누린다.

language and the multiplication of multilingualists. The racial and national interchange of students, teachers, industrialists, and religious philosophers.

52:6.4 (597.5)

2. *Intellectual cross-fertilization.* Brotherhood is impossible on a world whose inhabitants are so primitive that they fail to recognize the folly of unmitigated selfishness. There must occur an exchange of national and racial literature. Each race must become familiar with the thought of all races; each nation must know the feelings of all nations. Ignorance breeds suspicion, and suspicion is incompatible with the essential attitude of sympathy and love.

52:6.5 (597.6)

3. *Ethical awakening.* Only ethical consciousness can unmask the immorality of human intolerance and the sinfulness of fratricidal strife. Only a moral conscience can condemn the evils of national envy and racial jealousy. Only moral beings will ever seek for that spiritual insight which is essential to living the golden rule.

52:6.6 (598.1)

4. *Political wisdom.* Emotional maturity is essential to self-control. Only emotional maturity will insure the substitution of international techniques of civilized adjudication for the barbarous arbitrament of war. Wise statesmen will sometime work for the welfare of humanity even while they strive to promote the interest of their national or racial groups. Selfish political sagacity is ultimately suicidal — destructive of all those enduring qualities which insure planetary group survival.

52:6.7 (598.2)

5. *Spiritual insight.* The brotherhood of man is, after all, predicated on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The quickest way to realize the brotherhood of man on Urantia is to effect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present-day humanity. The only technique for accelerating the natural trend of social evolution is that of applying spiritual pressure from above, thus augmenting moral insight while enhancing the soul capacity of every mortal to understand and love every other mortal. Mutual understanding and fraternal love are transcendent civilizers and mighty factors in the world-wid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52:6.8 (598.3)

If you could be transplanted from your backward and confused world to some normal planet now in the postbestowal Son age, you would think you had been translated to the heaven of your traditions. You would hardly believe that you were observing the normal evolutionary workings of a mortal sphere of human habitation. These worlds are in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ir realm, and they enjoy all the advantages of the universe broadcasts and the reflectivity services of the superuniverse.

제 7 장. 교사 아들 이후의 사람

7. POST-TEACHER SON MAN

평균적인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다음 계층의 아들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이다. 우리는 너희의 예수가 돌아오기로 한 약속으로 인하여 유란시아가 그 자매 구체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서 벗어나 있음을 또 다시 발견한다. 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지만, 그의 두 번째 도래가 치안법관 아들 또는 교사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보다 먼저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교사 아들들은 영성화 되는 세계들로 집단을 이루어 도래한다. 한 명의 행성 교사 아들이 70명의 1차 아들들과 12명의 2차 아들들 그리고 데이날들 중에서 3명의 가장 높고 가장 체험이 많은 최극 계층의 원조와 도움을 받는다. 이 무리단은 진화적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변환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 그리고 종종 상당히 더 긴 어떤 기간—세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임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 공헌해 온 신성한 개인성들 전체의 이전(以前)의 수고들에 대한 삼위일체 기부금이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이제 중앙우주와 파라다이스까지 확장된다. 종족들은 상당히 영적인 상태가 된다.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 진화되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온다. 행성의 교육과 경제 그리고 행정-관리적 체계들이 급진적(急進的) 변화들을 겪는다. 새로운 가치들과 관계들이 수립된다.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나타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계에 널리 퍼진다.

이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살아 있는 존재들 가운데로부터 변환되는 세대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진보됨에 따라, 시간의 필사자들의 영적인 헌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된다. 조절자들이 육신 속에서의 생애 동안 그들의 주체들과 점점 더 많이 결합됨에 따라 자연적 죽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행성은 결국에는 필사자 상승의 1차 변형 계층에 속하도록 분류된다.

이 시기 동안의 삶은 즐겁고 유익하다. 긴 진화적 투쟁의 퇴보와 반사회적 최종 산물들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이르게 되며, 인종이 증가하는 번식 비율이 이성적으로 통제된다. 전혀 새로운 계층의 사회가 도래하였다. 필사자 사이에는 여전히 엄청난 차이들이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신분과 영적 평등의 이상에 더욱 가깝게 접근한다. 대의정치는 사라지고, 세계는 각 개별존재의 자아-통제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적 관리-행정과 경제적 조화-협동의 공동 임무들에게 주로 집중된다. 황금기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길고도 격렬한 행성 진화 투쟁의 현재적 목표가 눈에 보이고 있다. 시대들에 대한 보상이 곧 깨달아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들의 지혜가 곧 현시될 것이다.

52:7.1 (598.4) The Sons of the next order to arrive on the average evolutionary world are the Trinity Teacher Sons, the divine Sons of the Paradise Trinity. Again we find Urantia out of step with its sister spheres in that your Jesus has promised to return. That promise he will certainly fulfill, but no one knows whether his second coming will precede or follow the appearances of Magisterial or Teacher Sons on Urantia.

52:7.2 (598.5) The Teacher Sons come in groups to the spiritualizing worlds. A planetary Teacher Son is assisted and supported by seventy primary Sons, twelve secondary Sons, and three of the highest and most experienced of the supreme order of Daynals. This corps will remain for some time on the world, long enough to effect the transition from the evolutionary ages to the era of light and life — not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of planetary time and often considerably longer. This mission is a Trinity contribution to the antecedent efforts of all the divine personalities who have ministered to an inhabited world.

52:7.3 (598.6) The revelation of truth is now extended to the central universe and to Paradise. The races are becoming highly spiritual. A great people has evolved and a great age is approaching. The education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the planet are undergoing radical transformations. New values and relationships are being established. The kingdom of heaven is appearing on earth, and the glory of God is being shed abroad in the world.

52:7.4 (598.7) This is the dispensation when many mortals are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As the era of Trinity Teacher Sons progresses, the spiritual allegiance of the mortals of time becomes more and more universal. Natural death becomes less frequent as the Adjusters increasingly fuse with their subjects during the lifetime in the flesh. The planet eventually is classed as of the primary modified order of mortal ascension.

52:7.5 (598.1) Life during this era is pleasant and profitable. Degeneracy and the antisocial end products of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have been virtually obliterated. The length of life approaches five hundred Urantia years, and the reproductive rate of racial increase is intelligently controlled. An entirely new order of society has arrived. There are still great differences among mortals, but the state of society more nearly approaches the ideals of social brotherhood and spiritual equality.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vanishing, and the world is passing under the rule of individual self-control. The function of government is chiefly directed to collective tasks of social administration and economic co-ordination. The golden age is coming on apace; the temporal goal of the long and intense planetary evolutionary struggle is in sight. The reward of the ages is soon

이 시대 동안 세계의 물리적 관리-행정은 각각의 어른 개별존재에게 매일 한 시간씩을 요구한다; 그것은 유란시아 시간과 동일하다. 행성은 우주 관련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의 일간 신문들 중 가장 최근 판에서 너희가 지금 현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민한 관심으로 최근의 방송들을 살펴본다. 이 종족들은 너희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여 개의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극존재에 대한 행성 충성심이 점점 더 자라간다.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종족은 공의(公義)와 살아있는 자비를 실천하는 그들과 함께 줄을 서기 위해 점점 더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들의 기쁨에 넘친 봉사에 도달하고 있다. 육신적인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다; 행성은 크게 진보된 삶과 더욱 안정된 실존을 위해 성숙되고 있다.

그들의 세대에 두루 때때로 교사 아들들이 이 평화로운 세계들에게로 계속 도래한다. 그들은 진화적 계획이 행성에 대해 고려하였던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심판을 하는 한 치안법관 아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임무들 가운데에서 교사 아들과 함께 오는 반면, 그러한 다른 아들은 그들이 떠나갈 때 활동하고, 이 사법적 결정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계속되는 데에 두루 시대에 따라 계속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되풀이되는 각각의 임무는 지혜와 영성(靈性) 그리고 조화우주 계몽의 계속 상승하는 높이들에게로 그러한 숭고한 세계를 승진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체의 고귀한 원주민들은 여전히 유한한 필사자이다. 완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곳의 인간 거주자들의 삶에 있어서 거의 완전에 가까운 본질특성이 진화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동일한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임무들 중 하나가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자리로 승진되며,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감을 선포하기 위해 체계주권자가 나타난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 밖의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영주를 위해 단장한 공주처럼 준비되어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가 끝나는 때였다(적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의 연대기가 될 것이다).

옛 선지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고 내 앞에 남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생존을 받게

to be realized; the wisdom of the Gods is about to be manifested.

52-7.6 (599.2) The physical administration of a world during this age requires about one hour each day on the part of every adult individual; that is, the equivalent of one Urantia hour. The planet is in close touch with universe affairs, and its people scan the latest broadcasts with the same keen interest you now manifest in the latest editions of your daily newspapers. These races are occupied with a thousand things of interest unknown on your world.

52-7.7 (599.3) Increasingly, true planetary allegiance to the Supreme Being grow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more and more of the race step into line with those who practice justice and live mercy. Slowly but surely the world is being won to the joyous service of the Sons of God. The physical difficulties and material problems have been largely solved; the planet is ripening for advanced life and a more settled existence.

52-7.8 (599.4) From time to time throughout their dispensation, Teacher Sons continue to come to these peaceful worlds. They do not leave a world until they observe that the evolutionary plan, as it concerns that planet, is working smoothly. A Magisterial Son of judgment usually accompanies the Teacher Sons on their successive missions, while another such Son functions at the time of their departure, and these judicial actions continue from age to age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mortal regime of time and space.

52-7.9 (599.5) Each recurring mission of the Trinity Teacher Sons successively exalts such a supernal world to ever-ascending heights of wisdom, spirituality, and cosmic illumination. But the noble natives of such a sphere are still finite and mortal. Nothing is perfect; nevertheless, there is evolving a quality of near perfection in the operation of an imperfect world and in the lives of its human inhabitants.

52-7.10 (599.6) The Trinity Teacher Sons may return many times to the same world. But sooner or later,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of one of their missions,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lanetary Sovereign, and the System Sovereign appears to proclaim the entrance of such a world upon the era of light and life.

52-7.11 (599.7) It was of the conclusion of the terminal mission of the Teacher Sons (at least that would be the chronology on a normal world) that John wrote: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princess adorned for the prince.”

52-7.12 (600.1) This is the same renovated earth, the advanced planetary stage, that the olden seer envisioned when he wrote: “For, as the new

될 것이다; 새로운 달로부터 다음 달로 그리고 한 안식일로부터 다음 안식일로 모든 육체들이 내 앞에 경배를 드리러 나올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쓸 때 바라본 이것은, 개선된 지구, 진보된 행성 단계와 같은 것이다.

"선택된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민족; 너희는 너희를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신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낸 그 분에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들이다.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적 역사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영역이 전적으로 충성하였거나, 악으로 물들었거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나에 따라 차이 없이—그 앞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하느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명활동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출현 시에 곧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최종적 임무 이후에 그들이 떠나게 되면 빛과 생명의 이 장엄한 시대가 시작된다.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한 대로, 정의(正義)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에 의해 평화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쓴 어떤 사람의 희망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 아들 무리단이 그들의 첫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어떤 체제가 끝날 무렵에 떠나가면 빛과 생명의 시대—시간으로부터 영원의 문턱으로 전환되는 입구—가 밝아온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의 행성 실현은, 하늘을 생존되는 필사자의 즉각적인 운명과 최종 거주지로 묘사하는 종교적 믿음에 포용된 것 이상으로 더욱 멀리보는 그 어떤 미래 삶의 개념도 품을 수 없었던,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최고로 품을 수 있는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다.

[가브리엘의 참모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heavens and the new earth, which I will make, shall remain before me, so shall you and your children survive;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and from one Sabbath to another all flesh shall come to worship before me,' says the Lord."

52:7.13 (600.2) It is the mortals of such an age who are described as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 exalted people; and you shall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this marvelous light."

52:7.14 (600.3) No matter what the special natural history of an individual planet may be, no difference whether a realm has been wholly loyal, tainted with evil, or cursed by sin — no matter what the antecedents may be — sooner or later the grace of God and the ministry of angels will usher in the day of the advent of the Trinity Teacher Sons; and their departure, following their final mission, will inaugurate this superb era of light and life.

52:7.15 (600.4) All the worlds of Satania can join in the hope of the one who wrote: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s righteousness. Wherefore, beloved, seeing that you look for such things, be diligent that you may be found by Him in peace, without spot and blameless."

52:7.16 (600.5) The departure of the Teacher Son corps, at the end of their first or some subsequent reign, ushers in the daw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 the threshold of the transition from time to the vestibule of eternity. The planetary realization of this era of light and life far more than equals the fondest expectations of Urantia mortals who have entertained no more farseeing concepts of the future life than those embraced within religious beliefs which depict heaven as the immediate destiny and final dwelling place of surviving mortals.

52:7.17 (600.6)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ttached to the staff of Gabriel.]

제 53 편 루시퍼 반란

⇨ 052

유랜시아 책

054 ⇨

부 II. 지역우주

제 53 편 루시퍼 반란

섹션

소개

제 1 장. 반란의 주동자들

제 2 장. 반란의 원인들

제 3 장. 루시퍼 선언문

제 4 장. 반란의 발발(勃發)

제 5 장. 대립의 본성

제 6 장. 충성스러운 세라핌천사 사령관

제 7 장. 반란의 역사

제 8 장. 유랜시아에서의 사람의 아들

제 9 장. 반란의 현재 상태

소개

루시퍼는 네바돈의 눈부신 1차 라노난텍 아들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체계들에서 봉사를 체험한 바 있었고, 자기 집단 중에서 높은 지위의 조언자였으며, 지혜와 총명성 그리고 능률성에서 뛰어난 존재였다. 루시퍼는 자기 계층 중에서 37번이었으며, 멜기세덱들에 의해 임명되었을 때 그와 같은 종류의 70만 명 이상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총명한 100명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훌륭한 출발로부터, 악과 잘못을 두루 거쳐, 그는 죄를 포용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자아의 충동에 굴복한 그리고 길치레만 그럴듯한 개인적 해방의 궤변—우주 충성의 거부와 형제우애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시, 조화우주 관계들에 대한 무시—에 항복한 네바돈의 세 체계 주권자들 중 하나로 매겨지고 있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권역인 네바돈 우주 안에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구성된 1만 개의 체계들이 있다. 라노난텍 아들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들 만여 개의 체계들과 우주 본부들 전역에 걸친 그들의 전체 활동 중에서, 지금까지 오직 세 명

PAPER 53

THE LUCIFER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Leaders of Rebellion

2. The Causes of Rebellion

3. The Lucifer Manifesto

4. Outbreak of the Rebellion

5. Nature of the Conflict

6. A Loyal Seraphic Commander

7. History of the Rebellion

8. The Son of Man on Urantia

9. Present Status of the Rebellion

INTRODUCTION

53:0.1 (601.1) LUCIFER was a brilliant primary Lanonandek Son of Nebadon. He had experienced service in many systems, had been a high counselor of his group, and was distinguished for wisdom, sagacity, and efficiency. Lucifer was number 37 of his order, and when commissioned by the Melchizedeks, he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one hundred most able and brilliant personalities in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 of his kind. From such a magnificent beginning, through evil and error, he embraced sin and now is numbered as one of three System Sovereigns in Nebadon who have succumbed to the urge of self and surrendered to the sophistry of spurious personal liberty — rejection of universe allegiance and disregard of fraternal obligations, blindness to cosmic relationships.

53:0.2 (601.2)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e domain of Christ Michael, there are ten thousan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In all the history of Lanonandek Sons, in all their work throughout these thousands of systems and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only three System Sovereigns have

의 체계 주권자들만이 창조자 아들의 정부를 경멸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ever been found in contempt of the government of the Creator Son.

제 1 장. 반란의 주동자들

1. THE LEADERS OF REBELLION

루시퍼는 상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역우주에서 창조된 아들이고, 그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다: “너는 네가 창조된 이후로 네 안에서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네 모든 행동에서 완전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조연을 가진 바 있었다. 그리고 루시퍼는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동산인 “하느님의 거룩한 산 위에” 군림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607개의 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한 거대한 체계의 우두머리 집행자기 때문이었다.

53:1.1 (601.3) Lucifer was not an ascendant being; he was a created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of him it was said: “You were perfect in all your ways from the day you were created till unrighteousness was found in you.” Many times had he been in counsel with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Lucifer reigned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e administrative mount of Jerusem, for he was the chief executive of a great system of 607 inhabited worlds.

루시퍼는 훌륭한 존재, 찬란한 개인성이었다; 우주 권한의 직접적 계통 안에서 별자리들의 지고자 아버지들 다음에 서 있었다. 루시퍼의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이전에는 중속 지능체들이 그에게 경시와 경멸을 보이기를 억제하였다. 모세가 부활하였을 때, 심지어는 미가엘의 천사장도 “그에게 대항하여 비난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재판관이 너를 꾸짖는다.’고 간단하게 말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심판은 초우주의 통치자들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속한다.

53:1.2 (601.4) Lucifer was a magnificent being, a brilliant personality; he stood next to the Most High Fathers of the constellations in the direct line of universe authority. Notwithstanding Lucifer's transgression, subordinate intelligences refrained from showing him disrespect and disdain prior to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Even the archangel of Michael, at the time of Moses' resurrection, “did not bring against him an accusing judgment but simply said, ‘the Judge rebuke you.’” Judgment in such matters belongs to the Ancients of Days, the rulers of the superuniverse.

루시퍼는 지금 몰락되고 폐위된 사타니아의 주권자이다. 자아-응시는 심지어 천상의 세계의 고양된 개인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비참하다. 루시퍼에 대해 이런 말이 있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네 가슴이 높아졌고; 너의 총명함 때문에 네 지혜를 네가 타락시켰다.” 너희 옛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신분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여, 너는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가! 무모하게 세계들을 혼동시킨 네가 어떻게 하여 쫓겨났는가!”

53:1.3 (601.5) Lucifer is now the fallen and deposed Sovereign of Satania. Self-contemplation is most disastrous, even to the exalted personalities of the celestial world. Of Lucifer it was said: “Your heart was lifted up because of your beauty; you corrupted your wisdom because of your brightness.” Your olden prophet saw his sad estate when he wrote: “How are y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e you cast down, you who dared to confuse the worlds!”

루시퍼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너희 행성에서 변호하도록 그의 첫 번째 부관인 사탄을 배정한 사실 때문에 유란시아에서는 그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탄은 라노난덱들과 같은 1차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체계 주권자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루시퍼 반란에 충분히 가담하였다. “마귀”는 유란시아의 폐위된 행성영주 그리고 라노난덱들의 2차 계층의 한 아들인 칼리가스티아에 불과하다.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었을 때,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칼리가스티아는 그의 증여 임무가 실패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연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하게 실패하였다.

53:1.4 (602.1) Very little was heard of Lucifer on Urantia owing to the fact that he assigned his first lieutenant, Satan, to advocate his cause on your planet. Satan was a member of the same primary group of Lanonandeks but had never functioned as a System Sovereign; he entered fully into the Lucifer insurrection. The “devil” is none other than Caligastia, the deposed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a Son of the secondary order of Lanonandeks. At the time Michael was on Urantia in the flesh,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were leagued together to effect the miscarriage of his bestowal mission. But they signally failed.

아바돈은 칼리가스티아의 참모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자기 주인을 따라 반란에 가담하였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 반란들의 우두머리 집행자로 활동하였다. 바알세불은 반역한 칼리가스티아의 무리와 스스로 결연하였던 불충한 중도 창조체들의 영도자였다.

53:1.5 (602.2) Abaddon was the chief of the staff of Caligastia. He followed his master into rebellion and has ever since acted as chief executive of the Urantia rebels. Beelzebub was the leader of the disloyal midway creatures who allied themselves with the forces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용(龍)이 결국에는 이들 악한 인물들 전체를

53:1.6 (602.3) The dragon eventually became the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미가엘이 승리하자, “가브리엘이 구원자별로부터 내려와 용(반란의 모든 영도자들)을 한 시대 동안 결박하였다.” 예루셈 세라핌천사 반란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초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떠난 천사들을 그가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흑암의 든든한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제 2 장. 반란의 원인들

루시퍼와 그의 첫 번째 보좌관인 사탄은, 그들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우주 아버지 그리고 그때 그의 대관 아들, 미가엘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50만년 이상 예루셈을 통치하고 있었다.

사타니아 체계에는 반란을 조장하거나 불리 일으킬만한 독특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 생각은 루시퍼의 마음에서 기원되고 형성되었으며, 그가 어디에 있었든 기간에 그러한 반란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루시퍼가 자기 계획을 처음으로 사탄에게 알렸지만, 그의 유능하고도 충명한 연관-동료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데에는 여러 달이 소요되었다. 그렇지만, 반란 논리로 일단 전환되자, 그는 “자아-주장과 해방”에 대한 과감하고도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아무도 루시퍼에게 반란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 미가엘의 뜻에 대해, 그리고 미가엘 안에서 대표되는 바에 따른 우주 아버지의 계획들에 대해, 반대하는 자아-주장의 생각은 그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 창조자 아들과 그의 관계는 친밀하였고 항상 충성스러웠다.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전까지는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간으로 100년 이상 동안, 루시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함을 구원자별에 있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가 유버사에 반영해오고 있었다. 이 정보는 또한 창조자 아들 그리고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에게도 통보되었다.

이 기간에 두루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점점 더 비판하게 되었지만, 최고 통치자들에게는 항상 전심으로의 충성심을 고백하였다. 노골적인 그의 첫 번째 불충성은 루시퍼 해방 선언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에 가브리엘이 예루셈에 방문하였을 때 현시되었다. 가브리엘은 임박한 폭동에 대한 확신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란의 경우에 채택될 방법들에 대하여 별자리 아버지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직접 에덴시아로 갔다.

루시퍼의 반란에서 최종적으로 극에 달하였던 정확한 원인이나 원인들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다만 한 가지가 있

symbolic representation of all these evil personages. Upon the triumph of Michael, “Gabriel came down from Salvington and bound the dragon (all the rebel leaders) for an age.” Of the Jerusalem seraphic rebels it is written: “And the angels who kept not their first estate but left their own habitation, he has reserved in sure chains of darkness to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2. THE CAUSES OF REBELLION

53:2.1 (602.4) Lucifer and his first assistant, Satan, had reigned on Jerusem for more than five hundred thousand years when in their hearts they began to array themselves agains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then vicegerent Son, Michael.

53:2.2 (602.5) There were no peculiar or special conditions in the system of Satania which suggested or favored rebellion. It is our belief that the idea took origin and form in Lucifer's mind, and that he might have instigated such a rebellion no matter where he might have been stationed. Lucifer first announced his plans to Satan, but it required several months to corrupt the mind of his able and brilliant associate. However, when once converted to the rebel theories, he became a bold and earnest advocate of “self-assertion and liberty.”

53:2.3 (602.6) No one ever suggested rebellion to Lucifer. The idea of self-assertion in opposition to the will of Michael and to the plans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y are represented in Michael, had its origin in his own mind. His relations with the Creator Son had been intimate and always cordial. At no time prior to the exaltation of his own mind did Lucifer openly express dissatisfaction about the universe administration. Notwithstanding his silenc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standard time the Union of Days on Salvington had been reflectivating to Uversa that all was not at peace in Lucifer's mind. This information was also communicated to the Creator Son and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Norlatiadek.

53:2.4 (602.7) Throughout this period Lucifer became increasingly critical of the entire plan of universe administration but always professed wholehearted loyalty to the Supreme Rulers. His first outspoken disloyalty was manifested on the occasion of a visit of Gabriel to Jerusem just a few days before the open proclamation of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Gabriel was so profoundly impressed with the certainty of the impending outbreak that he went direct to Edentia to confer with the Constellation Fathers regarding the measures to be employed in case of open rebellion.

53:2.5 (603.1) It is very difficult to point out the exact cause or cause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Lucifer rebellion. We are certain of only one thing,

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던 공간에, 그것들은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이미 기원되었다. 자아-기만의 지점까지 스스로를 조장시킨 자아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그리하여 루시퍼는 반란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색이 우주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체계에는 실제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한동안 실제로 자신을 설득하였다. 자신의 계획으로 환멸감을 개발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중지시키기에는 그의 기원적이고 이간질하는 자부심이 너무 멀리 가버렸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체험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는 진실하지 못하게 되었고 악이 고의적이고도 의지적인 죄 속으로 개입되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총명한 집행자의 그 이후 처리행위로서 증명된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의 종속들 중 일부만이 제안된 자비를 받아들였다. 별자리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 에덴시아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가 이 악명 높은 반란자들을 구하기 위한 미가엘의 계획을 직접 제시하였지만, 창조자 아들의 자비는 항상 거부되었고 점점 증가되는 경멸과 모욕과 함께 거절되었다.

제 3 장. 루시퍼 선언문

루시퍼와 사탄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의 초기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최종적인 폭동은 루시퍼 해방 선언으로 나타났다. 반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1. 우주 아버지의 실체. 루시퍼는 우주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물리적 중력과 공간-에너지가 우주에 선천적으로 있었음을, 그리고 아버지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의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우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창안된 신화(神話)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선물임을 부인하였다. 그는 최종자조차도 결코 파라다이스에서 식별될 수 있는 아버지의 실제적인 개인성에 대한 매우-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창조에 대한 사기(詐欺)를 치려고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함께 공모하고 있다고까지 넌지시 비쳤다. 그는 존경을 무시라고 팔아 버렸다. 고발은 모두를 휩쓸었고, 무시무시하였으며 모독적이었다. 그 당시 예루셈에 있는 상송하는 시민들에게, 반란의 모든 제안들에 대항하여, 견고하게 서있고 확고하게 남도록 영향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최종자에 대한 은밀한 공격이었다.

2. 창조자 아들-미가엘의 우주 정부. 루시퍼는 지역체계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네바돈의 주권이 가설에 지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모든 개인성들이 충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미가엘, 창조자 아들의 권리에 대항하였다. 그는 경배에 대한 전체 계획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옹대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가엘을 자신의 창조자-아버지로 기꺼이 인정하

and that is: Whatever these first beginnings were, they had their origin in Lucifer's mind. There must have been a pride of self that nourished itself to the point of self-deception, so that Lucifer for a time really persuaded himself that his contemplation of rebellion was actually for the good of the system, if not of the universe. By the time his plans had developed to the point of disillusionment, no doubt he had gone too far for his original and mischief-making pride to permit him to stop. At some point in this experience he became insincere, and evil evolved into deliberate and willful sin. That this happened is proved by the subsequent conduct of this brilliant executive. He was long offered opportunity for repentance, but only some of his subordinates ever accepted the proffered mercy. The Faithful of Days of Edentia, on the request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person presented the plan of Michael for the saving of these flagrant rebels, but always was the mercy of the Creator Son rejected and rejected with increasing contempt and disdain.

3. THE LUCIFER MANIFESTO

53:3.1 (603.2) Whatever the early origins of trouble in the hearts of Lucifer and Satan, the final outbreak took form as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The cause of the rebels was stated under three heads:

53:3.2 (603.3) 1.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Lucifer charged that the Universal Father did not really exist, that physical gravity and space-energy were inherent in the universe, and that the Father was a myth invented by the Paradise Sons to enable them to maintain the rule of the universes in the Father's name. He denied that personality was a gift of the Universal Father. He even intimated that the finalizers were in collusion with the Paradise Sons to foist fraud upon all creation since they never brought back a very clear-cut idea of the Father's actual personality as it is discernible on Paradise. He traded on reverence as ignorance. The charge was sweeping, terrible, and blasphemous. It was this veiled attack upon the finalizers that no doubt influenced the ascendant citizens then on Jerusalem to stand firm and remain steadfast in resistance to all the rebel's proposals.

53:3.3 (603.4) 2. *The universe government of the Creator Son — Michael.* Lucifer contended that the local systems should be autonomous. He protested against the right of Michael, the Creator Son, to assume sovereignty of Nebadon in the name of a hypothetical Paradise Father and require all personalities to acknowledge allegiance to this unseen Father. He asserted that the whole plan of worship was a clever scheme to aggrandize the Paradise Sons. He was willing to

였지만 자신의 하느님 그리고 합법적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가장 혹독하게, 지역체계들과 우주들의 관련사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외부 지배자”—의 권한을 공격하였다. 그는 이 통치자들을 폭군과 침입자로 비난하였다. 그는 만일 사람들과 천사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담대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용기를 갖기만 한다면 이 통치자들 중 누구도 완벽한 지방 자치의 운영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음을 믿으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타일렀다.

그는 토착 존재들이 그들의 독립을 주장만 하면 지역체계들 안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집행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멸성이 체계 개인성들 안에 선천적으로 있음을, 부활이 자연적이고 자동적임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집행자들의 독단적이고 옳지 않은 활동들만 아니라면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3. 상승하는 필사자 훈련의 우주 계획에 대한 공격. 루시퍼는 우주 관리·행정의 기본 방침들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그렇게 온통 훈련하는 기획에 소모하고 있으며, 그는 이들 방침들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확인하였다. 그는 어떤 미지의 운명을 위해 공간의 필사자들을 준비시키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계획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예루셈에 있는 최종자 무리단의 현존은, 이들 필사자들이 순전히 날조된 어떤 운명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최종자가 그들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그런 초라한 구체에 돌아와 있는 것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화롭지도 않은 운명에 직면했었다고 비웃음과 함께 지적하였다. 그는 그들이 과도한 단련과 장기간의 훈련에 의해 이미 방탕이 지나쳤음을,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한 신화와 같은 영원한 운명의 날조에 모든 창조체를 노예화시키는 계획에 그들이 지금 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필사자 동료에 대해 실체 안에서, 배신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상승자들이 개별적 자아-결정권의 해방을 누려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의해 후원되고 무한한 영에 의해 도움을 받는 필사자 상승에 대한 전체 계획에 도전하고 그것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루시퍼는 그러한 해방 선언과 함께, 자신의 어둠과 죽음의 대향연을 시작하였다.

acknowledge Michael as his Creator-father but not as his God and rightful ruler.

53:3.4 (603.5) Most bitterly did he attack the right of the Ancients of Days — “foreign potentates” — to interfere in the affairs of the local systems and universes. These rulers he denounced as tyrants and usurpers.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believe that none of these rulers could do aught to interfere with the operation of complete home rule if men and angels only had the courage to assert themselves and boldly claim their rights.

53:3.5 (603.6) He contended that the executioners of the Ancients of Days could be debarred from functioning in the local systems if the native beings would only assert their independence. He maintained that immortality was inherent in the system personalities, that resurrection was natural and automatic, and that all beings would live eternally except for the arbitrary and unjust acts of the executioners of the Ancients of Days.

53:3.6 (604.1) 3. *The attack upon the universal plan of ascendant mortal training.* Lucifer maintained that far too much time and energy were expended upon the scheme of so thoroughly training ascending mortals in the principl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principles which he alleged were unethical and unsound. He protested against the agelong program for preparing the mortals of space for some unknown destiny and pointed to the presence of the finaliter corps on Jerusalem as proof that these mortals had spent ages of preparation for some destiny of pure fiction. With derision he pointed out that the finaliters had encountered a destiny no more glorious than to be returned to humble spheres similar to those of their origin. He intimated that they had been debauched by overmuch discipline and prolonged training, and that they were in reality traitors to their mortal fellows since they were now co-operating with the scheme of enslaving all creation to the fictions of a mythical eternal destiny for ascending mortals. He advocated that ascenders should enjoy the liberty of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He challenged and condemned the entire plan of mortal ascension as sponsored by the Paradise Sons of God and supported by the Infinite Spirit.

53:3.7 (604.2) And it was with such a Declaration of Liberty that Lucifer launched his orgy of darkness and death.

제 4 장. 반란의 발발(勃發)

루시퍼 성명서는 유리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타니아의 연례 비밀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만 년 전, 그 해 마지막 날에, 예루셈에 모인 무리 앞에서였다. 사탄은, 경배가 우주 힘—물리적, 지적, 그리고 영적—에 일치될 수 있어야만 하며, 한편 충성서약은 오직 현재의

4. OUTBREAK OF THE REBELLION

53:4.1 (604.3) The Lucifer manifesto was issued at the annual conclave of Satania on the sea of glass, in the presence of the assembled hosts of Jerusalem, on the last day of the year, about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Urantia time. Satan proclaimed that worship could be accorded the

실제적 통치자, “사람들과 천사들의 친구”이며 “해방의 하느님”인 루시퍼에게만 드릴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자아-주장은 루시퍼 반란의 슬로건이었다. 그의 주요 주장들 중 하나는, 만약 자치-정부가 옳기 선택들과 다른 집단들에 대해 선하고 옳바르다면, 그것은 모든 계층의 지능체들에게도 동등하게 선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의 동등성”과 “지능체의 형제신분”을 옹호하는 일에 단호하고도 완고하였다. 그는 모든 정부가 지역 행성들에게로 제한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자발적 연관이 지역체들에게로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감독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행성영주들이 최극집행자로서 세계들을 통치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는 입법 활동들이 별자리 본부에서 그리고 사법적 관련사들의 수행이 우주 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난하였다. 그는 정부의 이 모든 기능들이 체계 본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입법기관을 세우려고 진행시켰고 사탄의 관할 아래 자기 자신의 법정들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변절한 세계들에 있는 영주들이 동일한 일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루시퍼의 전체 관리-행정적 내각이 하나로 뭉쳐졌고 “해방된 세계들과 체계들”의 새 우두머리의 관리-행정 각료들로서 공개적으로 선서되었다.

네바돈에서 그 전에 두 번의 반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먼 별자리들에서 발생되었다. 루시퍼는 이 폭동들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지능체들 대부분이 그들의 영도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수의 통치”라는 것, “마음은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주 통치자들에 의해 허용된 그의 자유가, 사악한 그의 주장들 대부분을 승인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자기 상급자들을 모두 거역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그의 행위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아무런 장애나 방해 없이 자신의 유혹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자유가 손에 쥐어졌다.

루시퍼는 공의(公義)의 자비로운 연기(延期) 전체를, 반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였다. 그는 미가엘과 임마누엘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 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오만하게 도전하였으며 그리고는 우주와 초우주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서 아무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사실로서 지적하였다.

가브리엘은 불충한 이 모든 과정들 전반을 직접 지켜보았으며 때가 되면 미가엘을 대변할 것과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고 방해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아버지를 위한 정부가 자발적이고 성의 있는 그리고 꾀변이 없는 충성과 헌신만을 요구하였음”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universal forces —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 but that allegiance could be acknowledged only to the actual and present ruler, Lucifer, the “friend of men and angels” and the “God of liberty.”

53:4.2 (604.4) Self-assertion was the battle cry of the Lucifer rebellion. One of his chief arguments was that, if self-government was good and right for the Melchizedeks and other groups, it was equally good for all orders of intelligence. He was bold and persistent in the advocacy of the “equality of mind” and “the brotherhood of intelligence.” He maintained that all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local planets and their voluntary confederation into the local systems. All other supervision he disallowed. He promised the Planetary Princes that they should rule the worlds as supreme executives. He denounced the loc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and the conduct of judicial affairs on the universe capital. He contended that all these functions of government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system capitals and proceeded to set up his own legislative assembly and organized his own tribun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Satan. And he directed that the princes on the apostate worlds do the same.

53:4.3 (604.5) The entire administrative cabinet of Lucifer went over in a body and were sworn in publicly as the officer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 head of “the liberated worlds and systems.”

53:4.4 (605.1) While there had been two previous rebellions in Nebadon, they were in distant constellations. Lucifer held that these insurrections were unsuccessful because the majority of the intelligences failed to follow their leaders. He contended that “majorities rule,” that “mind is infallible.” The freedom allowed him by the universe rulers apparently sustained many of his nefarious contentions. He defied all his superiors; yet they apparently took no note of his doings. He was given a free hand to prosecute his seductive plan without let or hindrance.

53:4.5 (605.2) All the merciful delays of justice Lucifer pointed to as evidence of the ina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Paradise Sons to stop the rebellion. He would openly defy and arrogantly challenge Michael, Immanuel, and the Ancients of Days and then point to the fact that no action ensued as positive evidence of the impotency of the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governments.

53:4.6 (605.3) Gabriel was personally present throughout all these disloyal proceedings and only announced that he would, in due time, speak for Michael, and that all beings would be left free and unmolested in their choice; that the “government of the Sons for the Father desired only that loyalty and devotion which was voluntary, wholehearted, and sophistry-proof.”

가브리엘이 탈퇴하는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반란을 선전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무시되는 자신의 반란 정부를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하도록 충분히 허용되었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들은 즉시 이 불충한 개인성들의 활동을 사타니아 체계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이 기간은 사타니아 전체의 충성스러운 존재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시험의 기간이었다. 모든 것이 수 년 동안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맨션세계들에 큰 혼란이 있었다.

제 5 장. 대립의 본성

사타니아 반란이 발발하자, 미가엘은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과 의논을 가졌다. 이 중대한 회의가 있는 다음에, 미가엘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격변, 불간섭의 태도에 대해 그가 처리했던 것들의 특징이었던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이 반란과 그 이전의 두 반란이 있었던 때에 네바돈 우주 안에는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주권자 권한이 없었다. 미가엘은 신성한 권한에 의해,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였지만, 아직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증여 생애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반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서 자신이 즉위되는 때까지, 미가엘은 무시되는 반란 무리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년 동안 자유로운 길을 날뛰도록 허용되었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제 그러한 불충성의 폭동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일 또 다른 그러한 격변이 발생했을 때, 이 주권 권한이 그를 다르게 행동하도록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루시퍼 반란의 실제 전쟁으로부터 초연해 있기로 미가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자신의 직접적인 참모진을 에덴시아에 소집시켜 놓았으며, 지고자들의 의논하고 나서, 사타니아의 충성스러운 무리들을 지휘하기로 작정하였다. 가브리엘이 예루셈으로 나아가 충성스러운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무리의 현존 앞에서, 그가 미가엘의 깃발, 흰색 바탕에 세 개의 하늘색 동심원(同心圓)을 그린, 모든 창조의 삼위일체 정부의 물질적 상징(象徵)을 내걸면서 아버지—루시퍼와 사탄이 의심하였던 그 동일한 우주 아버지—에게 바쳐진 구체위에 그 자신을 세우고 있을 동안,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남아 있었다.

루시퍼의 상징은 한 개의 빨간색 원이 있는 흰색 깃발이었는데, 중앙에는 검정색으로 가득 찬

53:4.7 (605.4) Lucifer was permitted fully to establish and thoroughly to organize his rebel government before Gabriel made any effort to contest the right of secession or to counterwork the rebel propaganda. But the Constellation Fathers immediately confined the action of these disloyal personalities to the system of Satania. Nevertheless, this period of delay was a time of great trial and testing to the loyal beings of all Satania. All was chaotic for a few years, and there was great confusion on the mansion worlds.

5. NATURE OF THE CONFLICT

53:5.1 (605.5) Upon the outbreak of the Satania rebellion, Michael took counsel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Following this momentous conference, Michael announced that he would pursue the same policy which had characterized his dealings with similar upheavals in the past, an attitude of noninterference.

53:5.2 (605.6) At the time of this rebellion and the two which preceded it there was no absolute and personal sovereign authority in the universe of Nebadon. Michael ruled by divine right, as vicegerent of the Universal Father, but not yet in his own personal right. He had not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he had not yet been vested with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53:5.3 (605.7) From the outbreak of rebellion to the day of his enthronement as sovereign ruler of Nebadon, Michael never interfered with the rebel forces of Lucifer; they were allowed to run a free course for almost two hundred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Christ Michael now has ample power and authority to deal promptly, even summarily, with such outbreaks of disloyalty, but we doubt that this sovereign authority would lead him to act differently if another such upheaval should occur.

53:5.4 (605.8) Since Michael elected to remain aloof from the actual warfare of the Lucifer rebellion, Gabriel called his personal staff together on Edentia and, in counsel with the Most Highs, elected to assume command of the loyal hosts of Satania. Michael remained on Salvington while Gabriel proceeded to Jerusem, and establishing himself on the sphere dedicated to the Father — the same Universal Father whose personality Lucifer and Satan had questioned — in the presence of the forgathered hosts of loyal personalities, he displayed the banner of Michael, the material emblem of the Trinity government of all creation, the three azure blue concentric circles on a white background.

53:5.5 (606.1) The Lucifer emblem was a banner of white with one red circle, in the center of which a

원이 나타나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의 명령자와 그의 천사들이 용(루시퍼, 사탄, 그리고 변절한 영주들)과 대항하여 싸웠으며; 용과 그의 반란하는 천사들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유란시아에서 혼동을 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물리적 전쟁은 아니었다. 분투의 초기에는 루시퍼는 행성 원형극장에서 줄곧 열변을 토하였다. 가브리엘은 바로 가까이 자리 잡은 그의 본부로부터 반란의 궤변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를 수행하였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들 토론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에 사로잡혔던 다양한 개인성들이 구체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전쟁은 매우 끔찍하였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미성숙한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과 같은 그러한 특징의 야만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갈등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물질적 전투에서는 물질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만, 하늘에서의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한 싸움이었다.

제 6 장. 충성스러운 세라핌천사 사령관

적개심의 발단과 새로운 체계 통치자 그리고 그의 참모진의 도착 사이에서 잠시 동안 수많은 개인성들에 의해 수행된 고귀하고도 영감을 주는 수많은 헌신과 충성의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헌신에 있어서 이 모든 대담한 업적들 중에서 가장 장렬한 것은 사타니아 본부의 세라핌천사들의 두 번째 지휘관인 마노티아의 용맹스러운 행위였다.

예루셈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세라핌천사 무리의 대장이 루시퍼 주장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체계 행정-관리자 세라핌천사인 네 번째 계층 중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숫자가 빗나가게 되었는지를 의심할 여지없이 설명해 준다. 세라핌천사 영도자는 루시퍼의 총명한 개인성에 의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었다; 그의 매력 있는 처신들이 천상의 존재들의 비교적 하위 계층들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그러한 눈부신 개인성이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다.

루시퍼 반란의 개시와 연관된 체험들을 설명하면서, 마노티아가 이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나의 가장 신나는 순간은 루시퍼 반란과 연결된 가슴 떨리는 모험이었다, 그때 세라핌천사 사령관의 두 번째로서, 나는 미가엘에 대한 계획적으로 투사된 모욕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강력한 반란자들은 그들이 정리해 왔었던 교섭 세력들을 수단으로, 나의 파멸을 모색했다. 예루셈에서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났지만, 충성스러운 세라핌천사는 단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나의 직속 상급자가 불이행함에 따라 나에게

black solid circle appeared.

53:5.6 (606.2)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s commander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Lucifer, Satan, and the apostate princes); and the dragon and his rebellious angels fought but prevailed not.” This “war in heaven” was not a physical battle as such a conflict might be conceived on Urantia. In the early days of the struggle Lucifer held forth continuously in the planetary amphitheater. Gabriel conducted an unceasing exposure of the rebel sophistries from his headquarters taken up near at hand. The various personalities present on the sphere who were in doubt as to their attitude would journey back and forth between these discussions until they arrived at a final decision.

53:5.7 (606.3) But this war in heaven was very terrible and very real. While displaying none of the barbarities so characteristic of physical warfare on the immature worlds, this conflict was far more deadly; material life is in jeopardy in material combat, but the war in heaven was fought in terms of life eternal.

6. A LOYAL SERAPHIC COMMANDER

53:6.1 (606.4) There were many noble and inspiring acts of devotion and loyalty which were performed by numerous personalities during the interim between the outbreak of hostilities and the arrival of the new system ruler and his staff. But the most thrilling of all these daring feats of devotion was the courageous conduct of Manotia, the second in command of the Satania headquarters' seraphim.

53:6.2 (606.5) At the outbreak of rebellion on Jerusalem the head of the seraphic hosts joined the Lucifer cause. This no doubt explains why such a large number of the fourth order, the system administrator seraphim, went astray. The seraphic leader was spiritually blinded by the brilliant personality of Lucifer; his charming ways fascinated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y simply could not comprehend that it was possible for such a dazzling personality to go wrong.

53:6.3 (606.6) Not long since, in describing th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the Lucifer rebellion, Manotia said: “But my most exhilarating moment was the thrilling adventure connected with the Lucifer rebellion when, as second seraphic commander, I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ed insult to Michael; and the powerful rebels sought my destruction by means of the liaison forces they had arranged. There was a tremendous upheaval on Jerusalem, but not a single loyal seraphim was harmed.

53:6.4 (606.7) “Upon the default of my immediate

는 체계의 혼동된 세라핌천사 관련사들에 대한 명목상의 지도관으로서 예루셈의 천사 무리를 명령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 나는 멜기세덱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고무되었고, 물질아들들 대부분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았으며 나 자신의 계층에 해당하는 수많은 집단에 의해 버림을 받았지만,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크게 후원을 받았다.

“루시퍼의 탈퇴로 인하여 별자리 순환회로들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보무리단의 충성에 의존하였고, 그들은 가까이 있는 란투리아 체계에서 에덴시아에게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계층을 이룬 왕국, 충성을 지닌 지성, 그리고 진리의 영이, 반란과 자아-주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인적 해방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루시퍼를 대신할 덕망 있는 후계자인 새로운 체계 주권자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즉시 나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관계 무리단에 배정되었고, 배반한 칼리가스티아의 세계에 있는 충성하는 세라핌천사 계층에 대한 관찰권을 맡았다. 칼리가스티아, 그는 자기의 구체가, ‘자유롭게된 세계이며 해방된 개인성’으로 새롭게 투사된 체계의 일원이라고 선포했었던 자였다, 이것은 루시퍼에 의해 발표된 악명 높은 해방 선언 안에 제한한 것으로, ‘잘못-다스려지고 그릇되게 관리-운영된 사타니아 세계들에서, 해방을-사랑하고, 자유롭게-사고하고, 그리고 앞을-내다보는 지능존재’를 불러 모은다며 발표한 것이었다.

이 천사는 아직도 유란시아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라핌천사 연관-동료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제 7 장. 반란의 역사

루시퍼 반란은 체계에 널리 퍼졌다. 탈퇴한 37명의 행성영주들이 그들 세계 관리-행정을 대체로 최고 반란자의 편으로 가게 하였다. 오직 파놉티아에서만 행성영주가 자기 민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데 실패하였다. 이 세계의 경우, 사람들은 멜기세덱들의 안내에 따라, 미가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필사자 영역의 한 젊은 여인인 엘라노라가 인간 종족들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투쟁으로 찢겨진 세계에서 어느 한 혼동 루시퍼 깃발 아래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로 이들 충성스러운 파놉티아인들은 일곱 번째 예루셈 변환 세계에서 보살피는 자들로서 봉사하였고 아버지의 구체와 그것을 둘러싼 일곱 개의 억류 세계들에서 건축자들로서 봉사하였다. 파놉티아인들은 이들 세계의 말 그대로 보호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용도를 위해 이들 구체들을 꾸미도록 하는 미가엘의 개인적 지시들을 집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길에 머무르면서 이 일을 한다.

이 기간 전체 동안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에서 루시퍼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멜기

superior it devolved upon me to assume command of the angelic hosts of Jerusem as the titular director of the confused seraphic affairs of the system. I was morally upheld by the Melchizedeks, ably assisted by a majority of the Material Sons, deserted by a tremendous group of my own order, but magnificently supported by the ascendant mortals on Jerusem.

53:6.5 (606.8) “Having been automatically thrown out of the constellation circuits by the secession of Lucifer, we were dependent on the loyalty of our intelligence corps, who forwarded calls for help to Edentia from the near-by system of Rantulia; and we found that the kingdom of order, the intellect of loyalty, and the spirit of truth were inherently triumphant over rebellion, self-assertion, and so-called personal liberty; we were able to carry on until the arrival of the new System Sovereign, the worthy successor of Lucifer. And immediately thereafter I was assigned to the corps of the Melchizedek receivership of Urantia, assuming jurisdiction over the loyal seraphic orders on the world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who had proclaimed his sphere a member of the newly projected system of ‘liberated worlds and emancipated personalities’ proposed in the infamous Declaration of Liberty issued by Lucifer in his call to the ‘liberty-loving, free-thinking, and forward-looking intelligences of the misruled and maladministered worlds of Satania.’”

53:6.6 (607.1) This angel is still in service on Urantia, functioning as associate chief of seraphim.

7. HISTORY OF THE REBELLION

53:7.1 (607.2) The Lucifer rebellion was system wide. Thirty-seven seceding Planetary Princes swung their world administrations largely to the side of the archrebel. Only on Panoptia did the Planetary Prince fail to carry his people with him. On this world, under the guidance of the Melchizedeks, the people rallied to the support of Michael. Ellanora, a young woman of that mortal realm, grasped the leadership of the human races, and not a single soul on that strife-torn world enlisted under the Lucifer banner. And ever since have these loyal Panoptians served on the seventh Jerusem transition world as the caretakers and builders on the Father's sphere and its surrounding seven detention worlds. The Panoptians not only act as the literal custodians of these worlds, but they also execute the personal orders of Michael for the embellishment of these spheres for some future and unknown use. They do this work as they tarry en route to Edentia.

53:7.2 (607.3) Throughout this period Caligastia was advocating the cause of Lucifer on Urantia. The

세력들은 변절한 행성영주를 적절하게 반대하였지만, 억제되지 않은 해방의 궤변과 자아-주장의 망상들은 젊고 개발되지 않은 세계의 원시 민족들을 속이기 위한 모든 기회를 누렸다.

모든 탈퇴 선전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방송 서비스와 다른 모든 행성 간 큰길들이 체계 순환회로 감독자들에 의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폭동이 실제적으로 발발하자, 사타니아 전체 체계는 별자리에서 그리고 우주 순환회로들에서 모두 고립되었다. 이 시기 동안 모든 출입 메시지들은 세라핌천사 대리자들과 단독 메신저들에 의해 보내졌다. 몰락한 세계들에 이르는 순환회로들 역시 차단되었고, 그리하여 루시퍼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확장시키는 일에 이 큰길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순환회로들은 최고반란자들이 사타니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라노난텍 반란이었다. 반란의 행성들에 머문 생명운반자들 중 일부인이 불충한 영주들의 반란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우주 아들관계의 비교적 높은 계층들은 루시퍼 이탈에 가담하지 않았다. 삼위일체화 아들들 중에서는 아무도 빗나가지 않았다. 멜기세덱들, 천사장들, 그리고 참관한 저녁별들은 모두 미가엘에게 충성하였으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통치를 위하여 가브리엘과 함께 용맹스럽게 투쟁하였다.

파라다이스 기원 존재들은 불충성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단독 메신저들과 함께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본부를 차지하였으며 에덴시아의 중심으로 늘 계신이의 지도력 아래에 남아 있었다. 화해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천상의 기록자들 중 한 명도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론시아 동행자들과 맨션세계 교사들에서 큰 대가(代價)를 치렀다.

세라핌천사의 최극 계층에서는 한 명의 천사도 잃지 않았지만 그 다음 계층인 상급자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단이 기만당하고 함정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또는 감독 계층 중 일부 천사들이 속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격렬한 붕괴가 네 번째 집단, 행정-관리자 천사들에게 일어났는데, 세라핌천사들은 대개 체계 수도들의 임무에 배정되어 있다. 마노티아가 그들 중 거의 3분의 2를 구했지만,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숫자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반란 대열에 합류하였다. 행정-관리자 천사들에게 배정된 예루셈 케루빔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그들의 불충한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유실되었다.

물질아들들에게 배정된 존재들인 행성 천사 조력자들 중에서 또한 3분의 1이 속임을 당하였고, 과도기 사명활동자들 중 거의 10퍼센트가 함정에 빠졌다. 요한은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 썼을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

Melchizedeks ably opposed the apostate Planetary Prince, but the sophistries of unbridled liberty and the delusions of self-assertion had every opportunity for deceiving the primitive peoples of a young and undeveloped world.

53:7.3 (607.4) All secession propaganda had to be carried on by personal effort because the broadcast service and all other avenues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were suspended by the action of the system circuit supervisors. Upon the actual outbreak of the insurrection the entire system of Satania was isolated in both the constellation and the universe circuits. During this time all incoming and outgoing messages were dispatched by seraphic agents and Solitary Messengers. The circuits to the fallen worlds were also cut off, so that Lucifer could not utilize this avenue for the furtherance of his nefarious scheme. And these circuits will not be restored so long as the archrebel lives within the confines of Satania.

53:7.4 (607.5) This was a Lanonandek rebellion. The higher orders of local universe sonship did not join the Lucifer secession, although a few of the Life Carriers stationed on the rebel planets were somewhat influenced by the rebellion of the disloyal princes. None of the Trinitized Sons went astray. The Melchizedeks, archangels, and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ere all loyal to Michael and, with Gabriel, valiantly contended for the Father's will and the Son's rule.

53:7.5 (608.1) No beings of Paradise origin were involved in disloyalty. Together with the Solitary Messengers they took up headquarters on the world of the Spirit and remain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aithful of Days of Edentia. None of the conciliators apostatized, nor did a single one of the Celestial Recorders go astray. But a heavy toll was taken of the Morontia Companions and the Mansion World Teachers.

53:7.6 (608.2) Of the supreme order of seraphim, not an angel was lost, but a considerable group of the next order, the superior, were deceived and ensnared. Likewise a few of the third or supervisor order of angels were misled. But the terrible breakdown came in the fourth group, the administrator angels, those seraphim who are normally assigned to the duties of the system capitals. Manotia saved almost two thirds of them, but slightly over one third followed their chief into the rebel ranks. One third of all the Jerusalem cherubim attached to the administrator angels were lost with their disloyal seraphim.

53:7.7 (608.3) Of the planetary angelic helpers, those assigned to the Material Sons, about one third were deceived, and almost ten per cent of the transition ministers were ensnared. In symbol John saw this when he wrote of the great red dragon, saying: “And his tail drew a third part of the

어 당겨서 그것들을 흑암 속에 던져 넣었다.”

가장 큰 손실은 천사 계급에서 발생하였지만, 지능체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 대부분이 불충성에 포함되었다. 사타니아에서 손실된 681,227명의 물질아들들 중에서 95퍼센트가 루시퍼 반란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다. 행성영주들이 루시퍼 주장에 가담한 개별 행성들에서 많은 숫자의 중도 창조체들이 손실되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반란은 네바돈에서 발생한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비참한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 모두의 경우보다도 더 많은 개인성들이 이 폭동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루시퍼와 사탄의 밀사(密使)들이 최종자 문화 행성에 있는 유아-훈련 학교들을 남겨놓기는커녕 오히려 자비 안에서 진화 세계들로부터 구원된 이들 발달하고 있는 마음들을 타락시키려 했던 일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불명예가 되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공격을 받기 쉽지만, 비교적 낮은 영들보다 반란의 궤변들을 더 잘 견디어 낸다. 자신들의 조절자들과 최종적인 융합을 이루지 못한, 비교적 낮은 맨션세계들에 있는 그들 중 많은 숫자가 몰락한 반면, 예루셈에 있는 사타니아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어느 한 존재도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승 계획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네바돈 전체의 방송국들은 천상의 지능체로 이루어진 상상할 수 있는 각각의 계층의 근심에 싸인 시청자들에게 가득 메워졌는데, 그들은 사타니아 반란에 대한 속보들을 즉시 읽었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보고들이 있으면 기쁨을 향유하였으며,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지휘 하에, 탈퇴와 죄의 깃발 주변에 그토록 즉시적으로 모여든 교활한 악의 세력들 전체의 병합되고 집요한 노력들을 성공적으로 견디어 내었다.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루시퍼의 후계자가 세워지기까지 체계 시간으로 2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주권자가 왔는데, 자신의 참모진과 함께 유리 바다에 도착하였다. 나는 가브리엘에 의해 에덴시아에서 동원된 예비자들에 속하고 있었으며,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에게 전한 라나휘지의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예루셈 시민 중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가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남았고 혹독한 시험으로부터 모두가 승리자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별과 유버사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필사자 상승의 생존적 체험이 반란에 대항하는 가장 위대한 안전성이며 죄에 대항하는 가장 분명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확신의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신실한 필사자들로 구성된 이 숭고한 예루셈 단체는 정확하게 187,432,811명이었다.

라나휘지의 도착과 함께 교활한 반란자들은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고 다스리는 힘이 박탈당하

stars of heaven and cast them down in darkness.”

53:7.8 (608.4) The greatest loss occurred in the angelic ranks, but most of the lower orders of intelligence were involved in disloyalty. Of the 681,227 Material Sons lost in Satania, ninety-five per cent were casualties of the Lucifer rebellion. Large numbers of midway creatures were lost on those individual planets whose Planetary Princes joined the Lucifer cause.

53:7.9 (608.5) In many respects this rebellion was the most widespread and disastrous of all such occurrences in Nebadon. More personalities were involved in this insurrection than in both of the others. And it is to their everlasting dishonor that the emissaries of Lucifer and Satan spared not the infant-training schools on the finaliter cultural planet but rather sought to corrupt these developing minds in mercy salvaged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53:7.10 (608.6) The ascending mortals were vulnerable, but they withstood the sophistries of rebellion better than the lower spirits. While many on the lower mansion worlds, those who had not attained final fusion with their Adjusters, fell, it is recorded to the glory of the wisdom of the ascension scheme that not a single member of the Satania ascendant citizenship resident on Jerusem participated in the Lucifer rebellion.

53:7.11 (608.7) Hour by hour and day by day the broadcast stations of all Nebadon were thronged by the anxious watchers of every imaginable class of celestial intelligence, who intently perused the bulletins of the Satania rebellion and rejoiced as the reports continuously narrated the unswerving loyalty of the ascending mortals who, under their Melchizedek leadership, successfully withstood the combined and protracted efforts of all the subtle evil forces which so swiftly gathered around the banners of secession and sin.

53:7.12 (608.8) It was over two years of system time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in heaven” until the installation of Lucifer’s successor. But at last the new Sovereign came, landing on the sea of glass with his staff. I was among the reserves mobilized on Edentia by Gabriel, and I well remember the first message of Lanaforge to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It read: “Not a single Jerusem citizen was lost. Every ascendant mortal survived the fiery trial and emerged from the crucial test triumphant and altogether victorious.” And on to Salvington, Uversa, and Paradise went this message of assurance that the survival experience of mortal ascension is the greatest security against rebellion and the surest safeguard against sin. This noble Jerusem band of faithful mortals numbered just 187,432,811.

53:7.13 (609.1) With the arrival of Lanaforge the archrebels were dethroned and shorn of all

였지만, 한편 그들은 예루셈 근처와 모론시아 구체들에게로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민이 사는 각각의 세계들에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마음들을 혼동시키고 오도하려는 배후적이고도 기만적인 노력들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예루셈의 행정-관리적 고지(高地)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을 고려할 때,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퍼가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행정-관리적 권한들을 빼앗긴 반면, 이 사악한 반란을 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지역우주 권한 또는 법정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미가엘의 시대에는 주권적 통치자가 없었다. 체계 정부를 장악하는데 있어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별자리 아버지들을 승인하라는 하였지만,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현재의 지위와 미래의 처분에 관하여 아직 미해결된 많은 상소들에 있어서 그 다음의 결정들을 전혀 하달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최고반란자들은 불만과 자아-주장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교리를 더 퍼뜨리기 위하여 전체 체계를 배회하도록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년 동안 그들은 다른 세계를 속일 수가 없었다. 37개 세계가 몰락한 후로 어떤 사타니아 세계도 파멸되지 않았으며, 반란의 시대 이후에 사람이 살게 된 더 젊은 세계들도 그러하였다.

제 8 장. 유란시아에서의 사람의 아들

루시퍼와 사탄은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증여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사타니아 체계를 자유롭게 배회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병합된 맹공이 사람의 아들에게 가해지던 시기에 함께 너희들 세계에 마지막으로 있었다.

그 전에, “하느님의 아들들”인 행성영주들이 주기적으로 모였을 때, “사탄도 왔는데” 그는 몰락한 행성영주들의 고립된 세계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이후로 예루셈에서 그러한 해방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육신 속에 증여되었을 때 미가엘을 타락시키려고 그들이 노력한 이후로, 루시퍼와 사탄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사타니아 전체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립된 세계들 바깥에서, 사라졌다.

미가엘의 증여는 행성영주들이 배신한 행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란을 종료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어느 날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의 개인적 체험에서의 의의(意義)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때 사탄은 마지막 결정적인 투쟁을 위해 루시퍼와 함께 유란시아에 왔었다.

사람의 아들은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는 너희 세계에서의 자신의 승리가 사타니

governing powers, though they were permitted freely to go about Jerusalem, the morontia spheres, and even to the individual inhabited worlds. They continued their deceptive and seductive efforts to confuse and mislead the minds of men and angels. But as concerned their work on the administrative mount of Jerusalem, “their place was found no more.”

53:7.14 (609.2) While Lucifer was deprived of all administrative authority in Satania, there then existed no local universe power nor tribunal which could detain or destroy this wicked rebel; at that time Michael was not a sovereign ruler. The Ancients of Days sustained the Constellation Fathers in their seizure of the system government, but they have never handed down any subsequent decisions in the many appeals still pending with regard to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sposition of Lucifer, Satan, and their associates.

53:7.15 (609.3) Thus were these archrebels allowed to roam the entire system to seek further penetration for their doctrines of discontent and self-assertion. But in almost two hundred thousand Urantia years they have been unable to deceive another world. No Satania worlds have been lost since the fall of the thirty-seven, not even those younger worlds peopled since that day of rebellion.

8. THE SON OF MAN ON URANTIA

53:8.1 (609.4) Lucifer and Satan freely roamed the Satania system until the completion of the bestowal mission of Michael on Urantia. They were last on your world together during the time of their combined assault upon the Son of Man.

53:8.2 (609.5) Formerly, when the Planetary Princes, the “Sons of God,” were periodically assembled, “Satan came also,” claiming that he represented all of the isolated worlds of the fallen Planetary Princes. But he has not been accorded such liberty on Jerusalem since Michael’s terminal bestowal. Subsequent to their effort to corrupt Michael when in the bestowal flesh, all sympathy for Lucifer and Satan has perished throughout all Satania, that is, outside the isolated worlds of sin.

53:8.3 (609.6) The bestowal of Michael terminated the Lucifer rebellion in all Satania aside from the planets of the apostate Planetary Princes. And this was the significance of Jesus’ personal experience, just before his death in the flesh, when he one day exclaimed to his disciples, “And I beheld Satan fall as lightning from heaven.” He had come with Lucifer to Urantia for the last crucial struggle.

53:8.4 (609.7) The Son of Man was confident of success, and he knew that his triumph on your

아에서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왔던 다른 두 체계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친 그의 적들의 지위를 영구히 해결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루시퍼의 제안들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 주(主)가, 차분하게 그리고 신성한 확신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을 때 필사자들을 위한 생존과 천사들을 위한 안전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루시퍼 반란의 실제적인 종말이었다. 반란자들에게 대한 파멸을 바라는 가브리엘의 청원에 대하여 유버사 법정이 집행하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판결은, 이미 이 사건의 청문을 듣는 첫 걸음을 밟았기 때문에, 시간의 충격을 갖추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칼리가스티아는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로부터 절차상 유란시아의 영주로 인정을 받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이제 이 세계의 영주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생의 사업이 완결될 날이 더욱 가까워지자, “이 세계의 영주가 심판을 받는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한 때 “유란시아의 하느님”이었던 존재가 바로 이 폐위되고 불신임 당한 영주이다.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 미가엘의 마지막 행동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너희의 배신자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에서 여전히 그의 사악한 속셈들을 추진하려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의 사악한 현존으로 저주를 받게 되기를 실제로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혼을 가까이 끌어들일 수도 없다.

미가엘의 증여 이전에 이 흑암의 통치자들은 유란시아에서 그들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획책하였으며, 보다 아래의 그리고 종속된 천상의 개인성들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불충한 이 칼리가스티아와 그에 못지않은 정도로 비열한 연관-동료 달리가스티아는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미가엘의 영, 보호하는 진리의 영과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들의 신성한 장엄 앞에 굴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떤 몰락한 영도 하느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침투하거나 혼을 괴롭히는 힘을 갖지 못하였다. 사탄뿐만 아니라 칼리가스티아도 하느님의 신앙적 아들들에게 손을 대거나 접근할 수 없었다; 신앙은 죄와 사악한 불의에 대항하는 효력적인 무기이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사악하고 불의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방종 하는 필사자들이 악마들과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상상할 때는,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선천적인 저속한 성향에 지배받고, 그들 자신의 자연본성적 성향에 이끌리는 것뿐이다. 악마는 그에게 속하지도 않은 악에 대하여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칼리가스티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상

world would forever settle the status of his agelong enemies, not only in Satania but also in the other two systems where sin had entered. There was survival for mortals and security for angels when your Master, in reply to the Lucifer proposals, calmly and with divine assurance replied, “Get you behind me, Satan.” That was, in principle, the real end of the Lucifer rebellion. True, the Uversa tribunals have not yet rendered the executive decision regarding the appeal of Gabriel praying for the destruction of the rebels, but such a decree will, no doubt, be forthcoming in the fullness of time since the first step in the hearing of this case has already been taken.

53:8.5 (610.1) Caligastia was recognized by the Son of Man as the technical Prince of Urantia up to near the time of his death. Said Jesus: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shall the prince of this world be cast down.” And then still nearer the completion of his lifework he announced,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And it is this same dethroned and discredited Prince who was once termed “God of Urantia.”

53:8.6 (610.2) The last act of Michael before leaving Urantia was to offer mercy to Caligastia and Daligastia, but they spurned his tender proffer. Caligastia, your apostate Planetary Prince, is still free on Urantia to prosecute his nefarious designs, but he has absolutely no power to enter the minds of men, neither can he draw near to their souls to tempt or corrupt them unless they really desire to be cursed with his wicked presence.

53:8.7 (610.3) Before the bestowal of Michael these rulers of darkness sought to maintain their authority on Urantia, and they persistently withstood the minor and subordinate celestial personalities. But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is traitorous Caligastia and his equally contemptible associate, Daligastia, are servile before the divine majesty of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s and the protectiv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Michael, which has been poured out upon all flesh.

53:8.8 (610.4) But even so, no fallen spirit ever did have the power to invade the minds or to harass the souls of the children of God. Neither Satan nor Caligastia could ever touch or approach the faithful sons of God; faith is an effective armor against sin and iniquity. It is true: “He who is born of God keeps himself, and the wicked one touches him not.”

53:8.9 (610.5) In general, when weak and dissolute mortals are suppos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devils and demons, they are merely being dominated by their own inherent and debased tendencies, being led away by their own natural propensities. The devil has been given a great deal of credit for evil which does not belong to him.

당히 무력화되었다.

Caligastia has been comparatively impotent since the cross of Christ.

제 9 장. 반란의 현재 상태

9. PRESENT STATUS OF THE REBELLION

루시퍼 반란의 초기 시대에, 구원이 미가엘에 의해 모든 반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참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완벽한 우주 주권을 그가 달성함에 따라, 어떤 우주 봉사의 형태로의 복귀와 용서를 제안하였다. 영도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의 자비로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의 물질아들과 딸들을 포함하여, 천상의 존재들 중 비교적 낮은 계층들과 천사들 중 수천 명이 파놉티안들에 의해 선포된 자비를 받아들이었고 1,900년 전에 예수의 부활 시에 복권되었다. 이 존재들은 예루셈의 아버지의 세계로 지금까지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브리엘 대(對) 루시퍼의 문제에 있어서 유버사 법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적으로 유예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멸의 평결이 내려질 때, 회개하고 구원된 이 개인성들이 소멸의 판결로부터 제외될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집행이 유예된 이 혼들은 지금 아버지의 세계를 돌보는 일에 파놉티안들과 함께 수고하고 있다.

53:9.1 (610.6) Early in the days of the Lucifer rebellion, salvation was offered all rebels by Michael. To all who would show proof of sincere repentance, he offered, upon his attainment of complete universe sovereignty, forgiveness and reinstatement in some form of universe service. None of the leaders accepted this merciful proffer. But thousands of the angels and the low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including hundreds of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ccepted the mercy proclaimed by the Panoptians and were given rehabilitation at the time of Jesus' resurrection nineteen hundred years ago. These beings have since been transferred to the Father's world of Jerusem, where they must be held, technically, until the Uversa courts hand down a decision in the matter of Gabriel vs. Lucifer. But no one doubts that, when the annihilation verdict is issued, these repentant and salvaged personalities will be exempted from the decree of extinction. These probationary souls now labor with the Panoptians in the work of caring for the Father's world.

최고사기꾼은 미가엘이 증여를 완수하고 그리고 네바돈의 분별불가 통치자로서 최종적이고도 확고부동하게 자신을 확립시키려는 목적에서 되돌아서게 하려고 그가 획책하였던 그 날 이후로 유란시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안정된 지배자가 됨에 따라, 루시퍼는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대리자들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셈에 있는 아버지의 변환 구체들 중 1번 위성에서 죄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들과 체계들의 통치자들은 사타니아의 불충한 주권자의 종말을 여기에서 목격한다. 바울은 미가엘의 증여에 뒤따른 이 반란의 영도자들의 지위를 알았는데, 왜냐하면 칼리가스티아의 우두머리들에 대해 “하늘의 거처에 있는 악한 것을 행한 영의 무리”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53:9.2 (611.1) The archdeceiver has never been on Urantia since the days when he sought to turn back Michael from the purpose to complete the bestowal and to establish himself finally and securely as the unqualified ruler of Nebadon. Upon Michael's becoming the settled head of the universe of Nebadon, Lucifer was taken into custody by the agents of the Uversa Ancients of Days and has since been a prisoner on satellite number one of the Father's group of the transition spheres of Jerusem. And here the rulers of other worlds and systems behold the end of the unfaithful Sovereign of Satania. Paul knew of the status of these rebellious leaders following Michael's bestowal, for he wrote of Caligastia's chiefs as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미가엘은, 네바돈에 대한 최종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에 있어서 초우주 법정들이 통치할 때까지 루시퍼 반란에 관련된 모든 개인성들을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요청하였는데, 너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전에 유버사 대법정에 기록되었다. 체계 수도 집단과 관련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미가엘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사탄은 다른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한 배신한 세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될 때까지, 또는 유버사의 법정이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 그때까지, 몰락한 세계들에 있는 변절한 영주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53:9.3 (611.2) Michael, upon assuming the supreme sovereignty of Nebadon, petitioned the Ancients of Days for authority to intern all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Lucifer rebellion pending the rulings of the superuniverse tribunals in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placed on the records of the Uversa supreme court almost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s you reckon time. Concerning the system capital group, the Ancients of Days granted the Michael petition with but a single exception: Satan was allowed to make periodic visits to the apostate princes on the fallen worlds until another Son of God should be accepted by such apostate worlds, or until such time as the courts of Uversa should begin the

너희에게는 거주지 안에 고정적으로 있는 아들—행성영주 혹은 물질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유란시아에 올 수 있었다. 그 이후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대관으로 선포되어 왔으며, 그리고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의 시작은 고립된 모든 세계들에서 임시 행성 체제가 개시되었음을 나타내왔다. 이 계시가 발표되는 바로 직전까지 사탄이 주기적으로 칼리가스티아와 다른 몰락한 영주들을 방문한 것이 참말이며, 이 계시 발표 때에 최고반란자들의 절멸을 원하는 가브리엘의 탄원에 대한 첫 청문회가 있었다. 사탄은 지금 예루셈 감옥 세계들에서 분별불가적으로 억류되어 있다.

미가엘의 최종 증여 이후로 사타니아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억류된 반란자들을 돌보기 위해 감옥 세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사기꾼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다. 1,900년 동안 그 지위는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최고반란자들에 대해 마지막 처분을 내릴 때까지 현재의 사타니아 제약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체계 순환회로들은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그는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반란은 예루셈에서 이미 끝났다. 신성한 아들들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은 몰락한 세계들에서 끝난다. 우리는 자비를 언제라도 받아들일 모든 반란자들은 이미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성 실존의 이 반란자들을 파면시키게 될 번쩍이는 방송을 기다린다. 우리는 억류된 이 반란자들의 소멸을 발표시킬 집행 실시 방송에 의해 선포될 유버사의 판결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있던 자리는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아는 자들이 너희를 보고 놀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이 되어왔으나, 그러나 더 이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격 없는 이들 반란자 모두는 “그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모두가 유버사 선포를 기다린다.

그러나 여러 시대 동안 사타니아의 영적 어둠의 일곱 감옥 세계들은 네바돈 전체에게 엄격하게 경고를 해왔는데, “죄인들의 길은 괴롭다”; “모든 죄 안에는 그 자체의 파괴의 씨앗이 들어 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감명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포한다.

[한때 유란시아의 접수수관계에 배속되었던 마노반택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adjudication of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53:9.4 (611.3) Satan could come to Urantia because you had no Son of standing in residence — neither Planetary Prince nor Material Son. Machiventa Melchizedek has since been proclaimed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e opening of the case of Gabriel vs. Lucifer has signalized the inauguration of temporary planetary regimes on all the isolated worlds. It is true that Satan did periodically visit Caligastia and others of the fallen prince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presentation of these revelations, when there occurred the first hearing of Gabriel's plea for the annihilation of the archrebels. Satan is now unqualifiedly detained on the Jerusem prison worlds.

53:9.5 (611.4) Since Michael's final bestowal no one in all Satania has desired to go to the prison worlds to minister to the interned rebels. And no more beings have been won to the deceiver's cause. For nineteen hundred years the status has been unchanged.

53:9.6 (611.5) We do not look for a removal of the present Satania restrictions until the Ancients of Days make final disposition of the archrebels. The system circuits will not be reinstated so long as Lucifer lives. Meantime, he is wholly inactive.

53:9.7 (611.6) The rebellion has ended on Jerusem. It ends on the fallen worlds as fast as divine Sons arrive. We believe that all rebels who will ever accept mercy have done so. We await the flashing broadcast that will deprive these traitors of personality existence. We anticipate the verdict of Uversa will be announced by the executionary broadcast which will effect the annihilation of these interned rebels. Then will you look for their places, but they shall not be found. “And they who know you among the worlds will be astonished at you; you have been a terror, but never shall you be any more.” And thus shall all of these unworthy traitors “become as though they had not been.” All await the Uversa decree.

53:9.8 (611.7) But for ages the seven prison worlds of spiritual darkness in Satania have constituted a solemn warning to all Nebadon, eloquently and effectively proclaiming the great truth “that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that within every sin is concealed the seed of its own destruction”;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53:9.9 (612.1) [Presented by Manovandek Melchizedek, onetime attached to the receivership of Urantia.]

제 54 편 루시퍼 반란의 문제

⇨ 053

유랜시아 책

055 ⇨

부 II. 지역우주

제 54 편 루시퍼 반란의 문제

섹션

소개

제 1 장. 참 해방과 거짓 해방

제 2 장. 해방 탈취자

제 3 장. 공의(公義)의 시간 지연

제 4 장. 자비의 시간 지연

제 5 장. 지연의 지혜

제 6 장. 사랑의 승리

PAPER 54

PROBLEMS OF THE LUCIFER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1. True and False Liberty

2. The Theft of Liberty

3. The Time Lag of Justice

4. The Mercy Time Lag

5. The Wisdom of Delay

6. The Triumph of Love

소개

진화하는 사람은 악, 잘못, 죄, 그리고 사악한 불의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사람은 대비가 되는 완전과 불완전이 잠재적 악을 산출한다는 것; 상반되는 진리와 허위가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을 창조한다는 것; 자유의지 선택의 신성한 자질이 죄와 정의(正義)의 서로 갈라지는 영역 안에서 결국 생겨난다는 것; 신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하느님의 왕국으로 인도한다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악한 불의의 권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에 느리다.

하느님들은 악을 창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반역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잠재적 악(惡)은 완전 의미들과 가치들의 차이 있는 차원들을 포용하는 우주 안에서의 시간-실존함 이다. 죄(罪)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모든 영역에 잠재한다. 진리와 허구, 사실과 거짓말의 바로 그 상반되는 현존이 잘못의 잠재성을 이룬다. 악에 대한 고의적인 선택이 죄를 가져오며; 진리에 대한 고의적 거부가 잘못이다; 죄와 잘못에 대한 끈질긴 추구가 사악한 불의이다.

INTRODUCTION

54:0.1 (613.1) EVOLUTIONARY man finds it difficult fully to comprehend the significance and to grasp the meanings of evil, error, sin, and iniquity. Man is slow to perceive that contrastive perfection and imperfection produce potential evil; that conflicting truth and falsehood create confusing error; that the divine endowment of freewill choice eventuates in the divergent realms of sin and righteousness; that the persistent pursuit of divinity leads to the kingdom of God as contrasted with its continuous rejection, which leads to the domains of iniquity.

54:0.2 (613.2) The Gods neither create evil nor permit sin and rebellion. Potential evil is time-existent in a universe embracing differential levels of perfection meanings and values. Sin is potential in all realms where imperfect beings are endowed with the ability to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The very conflicting presence of truth and untruth, fact and falsehood, constitutes the potentiality of error. The deliberate choice of evil constitutes sin; the willful rejection of truth is error; the persistent pursuit of sin and error is iniquity.

제 1 장. 참 해방과 거짓 해방

루시퍼 반역으로부터 발생된 복잡한 모든 문제들 중에서, 미성숙한 진화적 필사자들이 참 해방과 거짓 해방을 구분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참 해방은 오랜 세월에 걸친 탐구요, 진화하는 진보에서의 포상이다. 거짓 해방은 시간의 잘못과 공간의 악에 대한 미묘한 속임수이다. 영구적인 해방은 공의(公義)의 실체—지성, 성숙,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동등성—에 입각한다.

해방은 그것의 동기가 비(非)지능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조화우주적 실존에서의 자아-파괴가 일어나는 하나의 기법이다. 참 해방은 실체에 점진적으로 관계되며, 사회적 평등, 조화우주적 공정함, 우주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신성한 의무들을 언제까지나 넘치도록 살핀다

해방은 물질적 공의(公義), 지적 공정함, 사회적 자제, 도덕적 의무, 그리고 영적 가치들과 분리될 때 자멸적이다. 해방은 조화우주 실체와 동떨어져서 실존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성 실체는 그것이 신성과 가지는 관계에 비례한다.

고삐가 풀린 자아-의지, 그리고 규제되지 않은 자아-표현은 누그러지지 않는 이기심, 곧 불경스러움의 절정과 같다 연관되면서 그리고 언제까지나-증가되는 자아의 정복 없이는, 해방은 이기적인 필사자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이다. 자아-동기에서 촉발되는 해방은 개념적인 환상이요, 잔혹한 속임수이다. 해방의 옷으로 가장하고 있는 방종은 비참한 속박의 전조이다.

참된 해방은 진정한 자아-존중의 연관-동료이다; 거짓된 해방은 자아-찬미의 달콤한 동반자이다. 참된 해방은 자아-통제의 열매이다; 거짓된 해방은, 자아-주장의 추측이다. 자아-통제는 이타적 봉사로서 이끈다; 자아-찬탄은 어떤 잘못된 개별 존재가 자신의 이기적인 웅대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이를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동료 존재들을 지배할 부당한 힘을 소유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정의로운 달성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혜조차도 그것이 규모에서 조화우주적이고 동기에서 영적일 경우에만 신성하고 안전하다.

저마다 지니고 있는 자연본능적 해방을 그들 개인에게서 박탈할 목적으로 다른 존재들을 다스릴 힘의 행사를 감당하도록 지능존재를 이끄는, 그러한 종류의 자아-기만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인간의 공정함에 관한 황금률은 그러한 모든 기만, 부당성, 이기심, 그리고 불의에 맞서 소리 높여 외친다. 오직 참되고 진정한 해방만이 사랑의 통치와 그리고 자비의 사명활동과 양립할 수 있다.

1. TRUE AND FALSE LIBERTY

54:1.1 (613.3) Of all the perplexing problems growing out of the Lucifer rebellion, none has occasioned more difficulty than the failure of immature evolutionary mortals to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liberty.

54:1.2 (613.4) True liberty is the quest of the ages and the reward of evolutionary progress. False liberty is the subtle deception of the error of time and the evil of space. Enduring liberty is predicated on the reality of justice — intelligence, maturity, fraternity, and equity.

54:1.3 (613.5) Liberty is a self-destroying technique of cosmic existence when its motivation is unintelligent, unconditioned, and uncontrolled. True liberty is progressively related to reality and is ever regardful of social equity, cosmic fairness, universe fraternity, and divine obligations.

54:1.4 (613.6) Liberty is suicidal when divorced from material justice, intellectual fairness, social forbearance, moral duty, and spiritual values. Liberty is nonexistent apart from cosmic reality, and all personality reality is proportional to its divinity relationships.

54:1.5 (613.7) Unbridled self-will and unregulated self-expression equal unmitigated selfishness, the acme of ungodliness. Liberty without the associated and ever-increasing conquest of self is a figment of egoistic mortal imagination. Self-motivated liberty is a conceptual illusion, a cruel deception. License masquerading in the garments of liberty is the forerunner of abject bondage.

54:1.6 (614.1) True liberty is the associate of genuine self-respect; false liberty is the consort of self-admiration. True liberty is the fruit of self-control; false liberty, the assumption of self-assertion. Self-control leads to altruistic service; self-admiration tends towards the exploitation of others for the selfish aggrandizement of such a mistaken individual as is willing to sacrifice righteous attainment for the sake of possessing unjust power over his fellow beings.

54:1.7 (614.2) Even wisdom is divine and safe only when it is cosmic in scope and spiritual in motivation.

54:1.8 (614.3) There is no error greater than that species of self-deception which leads intelligent beings to crave the exercise of power over other beings for the purpose of depriving these persons of their natural liberties. The golden rule of human fairness cries out against all such fraud, unfairness, selfishness, and unrighteousness. Only true and genuine liberty is compatible with the reign of love and the ministry of mercy.

우주의 최극 통치자들이 이들 의지의 특권과 개인성의 잠재에 대한 자비로운 존중심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데, 어떻게 감히 자아-의지적 창조체가 개인적 해방의 이름을 빌려 자기 동료의 권리를 침범한단 말인가! 어떤 존재도, 그가 추정하는 자신의 개인적 해방을 행사하면서 창조자들이 수여하고 그들의 모든 충성된 연관-동료들, 종속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하여 당연히 존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존에서의 특권을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진화적 사람은 죄와 사악한 불의의 세계에서 또는 원시적인 진화하는 구체의 초기 시대 동안 자신의 물질적 해방을 위해 폭군들 그리고 압제자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겠지만, 모른시아 세계들 또는 영 구체들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전쟁은 초기 진화적 사람의 유산이지만,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문명의 세계에서는 인종적 오해들을 조절하는 기법으로서의 물리적 투쟁이 오래 전부터 나쁘게 평가되어 왔다.

제 2 장. 해방 탈취자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하느님은 영원한 하보나를 구체적으로 투사하였고, 그 후로 계속 창조에서 조화-협동 참여—공유—의 영원한 원형들을 달성해 왔다. 공유의 이 원형들은 때에 맞추어 영원한 완전의 중앙우주를 복제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 각자를 위한 본질적 설계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진화우주의 모든 창조체는 체형적 완전성 달성의 이 장엄한 모험 여행에서 시간-공간 창조자들의 동반자가 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창조적인 자유의지를 그처럼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기꺼이 깃들여, 그 자신의 영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과 실재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맺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은, 할 수도 없는 일, 체험적 우주 안에서 시간의 단락(短絡)을 시도한 것이었다. 루시퍼의 범죄는,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반(反)공민권획득을 창조적으로 시도한 것,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빛과 생명의 지위를 달성하려는 긴 진화적인 투쟁에의 창조체의 개인적 참여—자유지 참여—를 인지하지 않고 박탈한 것이었다.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 왕년의 너희 체계 주권자는, 모든 개인적 창조체에게 내려진 자유의지의 증여로서 계시되는 바와 같은, 하느님의 의지의 영원한 목적을 직접 가로질러, 자기 자신의 현재적 목적으로 정해 버렸다. 루시퍼 반역은 이처럼 사타니아 체계의 상승자와 봉사자들의 자유의지 선택을 가능한 최대한 침해—언젠가는 사타니아의 완전해진 체계로서 존재할 체험적 지혜를 향해 기념비를 천천히 세우는 일에,

54:1.9 (614.4) How dare the self-willed creature encroach upon the rights of his fellows in the name of personal liberty when the Supreme Rulers of the universe stand back in merciful respect for these prerogatives of will and potentials of personality! No being, in the exercise of his supposed personal liberty, has a right to deprive any other being of those privileges of existence conferred by the Creators and duly respected by all their loyal associates, subordinates, and subjects.

54:1.10 (614.5) Evolutionary man may have to contend for his material liberties with tyrants and oppressors on a world of sin and iniquity or during the early times of a primitive evolving sphere, but not so on the morontia worlds or on the spirit spheres. War is the heritage of early evolutionary man, but on worlds of normal advancing civilization physical combat as a technique of adjusting racial misunderstandings has long since fallen into disrepute.

2. THE THEFT OF LIBERTY

54:2.1 (614.6) With the Son and in the Spirit did God project eternal Havona, and ever since has there obtained the eternal pattern of co-ordinate participation in creation — sharing. This pattern of sharing is the master design for every on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who go out into space to engage in the attempt to duplicate in time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al perfection.

54:2.2 (614.7) Every creature of every evolving universe who aspires to do the Father's will is destined to become the partner of the time-space Creators in this magnificent adventure of experiential perfection attainment. Were this not true, the Father would have hardly endowed such creatures with creative free will, neither would he indwell them, actually go into partnership with them by means of his own spirit.

54:2.3 (614.8) Lucifer's folly was the attempt to do the nondoable, to short-circuit time in an experiential universe. Lucifer's crime was the attempted creative disenfranchisement of every personality in Satania, the unrecognized abridgment of the creature's personal participation — freewill participation — in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to attain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so doing this onetime Sovereign of your system set the temporal purpose of his own will directly athwart the eternal purpose of God's will as it is revealed in the bestowal of free will upon all personal creatures. The Lucifer rebellion thus threatened the maximum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freewill choice of the ascenders and servers of the

독특하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기여하는 떨리는 체험을, 이들 모든 존재에게서 박탈하려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위협이었다. 그리하여 루시퍼 성명서는, 해방이라는 옷으로 변장하면서, 이성의 맑은 빛 안에서, 개인적 해방에 대한 탈취에서 절정에 이른 기념비적인 위협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리고 네바돈의 모든 역사에서 오직 두 번 접근되었던 규모로 행하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요약하자면, 하느님이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주셨던 것을 루시퍼가 그들로부터 빼앗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체계의 운명과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창조에 참여하는 신성한 특권이다.

우주 전체에서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로부터 참 해방,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느님을 경배하고 자기 동료들을 봉사하는 특권을 빼앗으려는 것을 정의로운 해방으로 가질 수는 없다.

제 3 장. 공의(公義)의 시간 지연

진화 세계들의 도덕적 의지 창조체들은 모든-지혜이신 창조자들이 왜 악과 죄를 허용하는가와 같은 생각없는 질문으로 늘 시달린다. 그들은 창조체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이나 매우 아름다운 천사의 자유 의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 어떤 상징적 이상이 아니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의 우주 실체이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자유로움은 최극 통치자들의 자질이며, 그들은 어떤 존재나 혹은 존재들의 집단에게도 넓은 우주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개인성에게서 신성하게 증명된 이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실사 빗나가고 무지한 존재들이 이러한 개인적 자유로움을 사칭하는 즐거움에 빠지는 그러한 만족을 준다 해도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심(全心)으로 악(죄)과 정체화구현을 이루는 것이 비(非)실존(절멸)와 동등하다 하더라도, 죄(罪)와의 그러한 개인적 정체화구현과 형벌의 집행—악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자동적 결과—시기 사이에는 그러한 어떤 개별존재의 우주 지위에 대해, 모든 관련된 개인성들에게 전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러한 판결이 허용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것처럼 공정하고 정당하여 죄를 지은자 스스로가 승인을 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의 시간에서의 기간이 끼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진리와 선의 실체에 대항하는 이 우주 반역이 평결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만일 죄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의 공의(公義)를 가슴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판결 집행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사려

system of Satania — a threat forevermore to deprive every one of these beings of the thrilling experience of contributing something personal and unique to the slowly erecting monument to experiential wisdom which will sometime exist as the perfected system of Satania. Thus does the Lucifer manifesto, masquerading in the habiliments of liberty, stand forth in the clear light of reason as a monumental threat to consummate the theft of personal liberty and to do it on a scale that has been approached only twice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54:2.4 (615.1) In short, what God had given men and angels Lucifer would have taken away from them, that is, the divine privilege of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of their own destinies and of the destiny of this local system of inhabited worlds.

54:2.5 (615.2) No being in all the universe has the rightful liberty to deprive any other being of true liberty, the right to love and be loved, the privilege of worshiping God and of serving his fellows.

3. THE TIME LAG OF JUSTICE

54:3.1 (615.3) The moral will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always bothered with the unthinking question as to why the all-wise Creators permit evil and sin. They fail to comprehend that both are inevitable if the creature is to be truly free. The free will of evolving man or exquisite angel is not a mere philosophic concept, a symbolic ideal. Man's ability to choose good or evil is a universe reality. This liberty to choose for oneself is an endowment of the Supreme Rulers, and they will not permit any being or group of beings to deprive a single personality in the wide universe of this divinely bestowed liberty — not even to satisfy such misguided and ignorant beings in the enjoyment of this misnamed personal liberty.

54:3.2 (615.4) Although conscious and wholehearted identification with evil (sin) is the equivalent of nonexistence (annihilation), there must always intervene between the time of such personal identification with sin and the execution of the penalty — the automatic result of such a willful embrace of evil — a period of time of sufficient length to allow for such an adjudication of such an individual's universe status as will prove entirely satisfactory to all related universe personalities, and which will be so fair and just as to win the approval of the sinner himself.

54:3.3 (615.5) But if this universe rebel against the reality of truth and goodness refuses to approve the verdict, and if the guilty one knows in his heart the justice of his condemnation but refuses to make such confession, then must the execution of

깊은 분별력에 따라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행악자 및 모든 관계된 지지자와 가능한 동정자 둘 모두의 안에서, 모든 도덕적 가치들과 모든 영적 실체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 어떤 존재도 절멸시키기를 거절한다.

제 4 장. 자비의 시간 지연

놀라시아텍이라는 별자리에서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는, 체포되고 억류되며 재판을 받기 전까지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몰락한 영주들이 해독을 끼치도록 허용되었던 이유들에 관한 것이다.

자녀들을 낳고 키운 부모들은 창조자-아버지인 미가엘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과포시키는 일을 왜 주저하는지를 더 잘 납득할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의 회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악을-행하는 창조체가 그릇된 일을 행하기—죄를 짓기—를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유-의지성의 사실을 입증하며 만일 연장된 자비가 뉘우침과 회복을 이끌어낸다면 공의(公義) 실행에 있어서 그 어떤 지연도 충분하게 정당화한다.

루시퍼가 추구하였던 대부분의 해방들을 그는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것들은 그가 앞으로 받게 되어 있었다. 이들 모든 고귀한 자질은 성급함에 길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우주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다른 존재의 권리와 해방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면서 소유하려는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잃게 되었다. 윤리적 책무들은 태생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것이다.

최극 통치자들이 루시퍼 반역의 영도자들을 즉각적으로 괴멸하거나 억류시키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공의(公義)의 실행을 유예시키는 자비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에 의해 연장되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 창조자-아버지의 사랑을 제외하고, 초우주의 최극 공의(公義)가 활동해 왔다. 만일 루시퍼 반란과 같은 그러한 에피소드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된 동안 네바돈에서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악의 선동자들은 즉시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멸(絶滅)되었을 것이다.

최극 공의(公義)는 신성한 자비에 의해 억제되지 않을 때 즉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에 대한 자비의 사명활동이 이러한 시간 지연, 씨를 뿌리는 시간과 거두는 시간 사이에 있는 이 구원의 간격을 항상 제공한다. 만약에

sentence be delayed in accordance with the discre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Ancients of Days refuse to annihilate any being until all moral values and all spiritual realities are extinct, both in the evildoer and in all related supporters and possible sympathizers.

4. THE MERCY TIME LAG

54:4.1 (615.6) Another problem somewhat difficult of explanation in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pertains to the reasons for permitting Lucifer, Satan, and the fallen princes to work mischief so long before being apprehended, interned, and adjudicated.

54:4.2 (616.1) Parents, those who have borne and reared children,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why Michael, a Creator-father, might be slow to condemn and destroy his own Sons. Jesus' story of the prodigal son well illustrates how a loving father can long wait for the repentance of an erring child.

54:4.3 (616.2) The very fact that an evil-doing creature can actually choose to do wrong — commit sin — establishes the fact of free-willness and fully justifies any length delay in the execution of justice provided the extended mercy might conduce to repentance and rehabilitation.

54:4.4 (616.3) Most of the liberties which Lucifer sought he already had; others he was to receive in the future. All these precious endowments were lost by giving way to impatience and yielding to a desire to possess what one craves now and to possess it in defiance of all obligation to respect the rights and liberties of all other beings compos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Ethical obligations are innate, divine, and universal.

54:4.5 (616.4) There are many reasons known to us why the Supreme Rulers did not immediately destroy or intern the leaders of the Lucifer rebellion. There are no doubt still other and possibly better reasons unknown to us. The mercy features of this delay in the execution of justice were extended personally by Michael of Nebadon. Except for the affection of this Creator-father for his erring Sons, the supreme justice of the superuniverse would have acted. If such an episode as the Lucifer rebellion had occurred in Nebadon while Michael was incarnated on Urantia, the instigators of such evil might have been instantly and absolutely annihilated.

54:4.6 (616.5) Supreme justice can act instantly when not restrained by divine mercy. But the ministry of mercy to the children of time and space always provides for this time lag, this saving interval between seedtime and harvest. If the seed sowing

뿌려지는 씨가 선하면, 이 간격은 성격의 시험과 개량을 위해 제공된다; 만일 뿌려지는 씨가 악하면, 이 자비로운 연기는 회개와 교정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행악자들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서의 이 시간 지연은 일곱 초우주들의 자비 사명활동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자비에 의한 이 공의(公義)의 억제는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러한 사랑의 하느님이 우주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모든 창조체들에 대한 숙명과 심판을 자비 안에서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시간의 자비로운 연기는 창조자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죄로 물든 반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인내의 기법으로부터 우주 안에 선(善)이 파생된다. 악을 피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부터 선이 발생될 수 없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이, 하느님을 알고 그의 뜻을 실천하기를 사랑하며 그의 영원한 계획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만물이(잠재적인 악과 현시된 악을 포함하여) 다 함께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똑같이 참이다.

그러나 이 자비의 지연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루시퍼 반란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의 긴 지연(유란시아에서 계산되는 시간으로)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유버사에서 열렸고, 이 후로는 사탄이 루시퍼와 함께 감옥 세계에 갇힐 것을 지도하는 옛것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사타니아의 몰락한 세계들 중 어디에 더 방문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에 중지부를 찍었다. 자비가 지배하는 우주에 있어서의 재판은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있다.

제 5 장. 지연의 지혜

루시퍼와 그의 공모자들이 보다 빨리 억류되거나 판결을 왜 받지 않았는지 나에게 알려진 많은 이유들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 자비는 그의 악한 생각들과 죄로 물든 행위들에 관해 고의적이고 충분히 선택된 태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모든 그릇된 일을 행한 자들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

2. 최극 공의(公義)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그러므로 자비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공의(公義)가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모든 행악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

3. 어떤 애정 어린 아버지도 결코 자기 가족 중 잘못을 저지르는 구성원에게 벌을 가하려고 황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인내는 시간과 독립하여 기능할 수는 없다.

4. 그릇된 행동은 한 가정에 항상 해독을 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사랑은 애정

is good, this interval provides for the testing and upbuilding of character; if the seed sowing is evil, this merciful delay provides time for repentance and rectification. This time delay in the adjudication and execution of evildoers is inherent in the mercy ministry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is restraint of justice by mercy proves that God is love, and that such a God of love dominates the universes and in mercy controls the fate and judgment of all his creatures.

54:4.7 (616.6) The mercy delays of time are by the mandate of the free will of the Creators. There is good to be derived in the universe from this technique of patience in dealing with sinful rebels. While it is all too true that good cannot come of evil to the one who contemplates and performs evil, it is equally true that all things (including evil, potential and manifest) work together for good to all beings who know God, love to do his will, and are ascending Paradiseward according to his eternal plan and divine purpose.

54:4.8 (616.7) But these mercy delays are not interminable. Notwithstanding the long delay (as time is reckoned on Urantia) in adjudicating the Lucifer rebellion, we may record that, during the time of effecting this revelation, the first hearing in the pending case of Gabriel vs. Lucifer was held on Uversa, and soon thereafter there issued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directing that Satan be henceforth confined to the prison world with Lucifer. This ends the ability of Satan to pay further visits to any of the fallen worlds of Satania. Justice in a mercy-dominated universe may be slow, but it is certain.

5. THE WISDOM OF DELAY

54:5.1 (617.1) Of the many reasons known to me as to why Lucifer and his confederates were not sooner interned or adjudicated, I am permitted to recite the following:

54:5.2 (617.2) 1. Mercy requires that every wrongdoer have sufficient time in which to formulate a deliberate and fully chosen attitude regarding his evil thoughts and sinful acts.

54:5.3 (617.3) 2. Supreme justice is dominated by a Father's love; therefore will justice never destroy that which mercy can save. Time to accept salvation is vouchsafed every evildoer.

54:5.4 (617.4) 3. No affectionate father is ever precipitate in visiting punishment upon an erring member of his family. Patience cannot function independently of time.

54:5.5 (617.5) 4. While wrongdoing is always deleterious to a family, wisdom and love admonish

어린 아버지께 의해 승락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죄지는 자가 자기 길에서의 잘못을 알고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정직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를 참아내라고 타이른다.

5. 루시퍼를 향한 미가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가 루시퍼의 창조자-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에 자신의 중여 생애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고 그리하여 네바돈의 분별불가적 주권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체계 주권자에 대해 즉석 재판을 행하는 것이 창조자 아들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

6.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이 반역들을 즉각적으로 절멸(絶滅)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는 그릇된 일을 행한 자들을 거의 처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미가엘 결정들을 뒤엎는 것을 거절하였다.

7. 임마누엘이 미가엘에게 반역자들로부터 초연하게 남아있고 반란으로 하여금 자아-말소의 자연적인 과정을 따르도록 허용하라고 조언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지혜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연합된 지혜의 시간 반영이다.

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심으로 늘 계신이는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반역자들로 하여금 놀라시아택의 모든 현재 그리고 미래 시민들—모든 필사자, 모론시아, 또는 영 창조체—의 가슴속에서 이 행악자들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곧 뿌리째 뽑히게 되는 끝날 까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라고 충고하였다.

9. 예루셈에서는 오르본톤의 최극 집행자의 개인적 대표자가 가브리엘에게 조언하여, 루시퍼 해방 선언에 포함된 그 문제들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모든 살아있는 창조체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하였다. 반역의 문제들이 부풀어 오르자, 가브리엘의 파라다이스 비상 충고자는, 그러한 충만하고 자유로운 기회가 모든 놀라시아택 창조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능성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의심에 싸인 창조체들이 전체 별자리에 대항하여 자아-보호 속에서 연장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놀라시아택의 존재들에게 상승의 파라다이스 문들을 계속 열어놓기 위하여, 반역의 충분한 발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것과 함께 모든 방법에 있어서 모든 존재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10.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그녀의 세 번째 별도 선언으로서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것도 절반의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비겁하게 은폐되거나, 아니면 반역자들 그리고 반역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지도하였다. 천사 무리는 악과 죄의 전염병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치료를 이룩하는 가장 빠른 기법으로써 죄-표현을 위한 무제한적 기회와 충분한 폭로를 위해 일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11. 비슷한 상황들에서 개인적 체험을 이미

the upright children to bear with an erring brother during the time granted by the affectionate father in which the sinner may see the error of his way and embrace salvation.

54:5.6 (617.6) 5. Regardless of Michael's attitude toward Lucifer, notwithstanding his being Lucifer's Creator-father, it was not in the province of the Creator Son to exercise summary jurisdiction over the apostate System Sovereign because he had not then completed his bestowal career, thereby attaining unqualified sovereignty of Nebadon.

54:5.7 (617.7) 6. The Ancients of Days could have immediately annihilated these rebels, but they seldom execute wrongdoers without a full hearing. In this instance they refused to overrule the Michael decisions.

54:5.8 (617.8) 7. It is evident that Immanuel counseled Michael to remain aloof from the rebels and allow rebellion to pursue a natural course of self-obliteration. And the wisdom of the Union of Days is the time reflection of the united wisdom of the Paradise Trinity.

54:5.9 (617.9) 8. The Faithful of Days on Edentia advised the Constellation Fathers to allow the rebels free course to the end that all sympathy for these evildoers should be the sooner uprooted in the hearts of every present and future citizen of Norlatiadek — every mortal, morontia, or spirit creature.

54:5.10 (617.10) 9. On Jerusem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counseled Gabriel to foster full opportunity for every living creature to mature a deliberate choice in those matters involved in the Lucifer Declaration of Liberty. The issues of rebellion having been raised, the Paradise emergency adviser of Gabriel portrayed that, if such full and free opportunity were not given all Norlatiadek creatures, then would the Paradise quarantine against all such possible halfhearted or doubt-stricken creatures be extended in self-protection against the entire constellation. To keep open the Paradise doors of ascension to the beings of Norlatiadek, it wa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full development of rebellion and to insure the complete determination of attitude on the part of all beings in any way concerned therewith.

54:5.11 (617.11) 10.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issued as her third independent proclamation a mandate directing that nothing be done to half cure, cowardly suppress, or otherwise hide the hideous visage of rebels and rebellion. The angelic hosts were directed to work for full disclosure and unlimited opportunity for sin-expression as the quickest technique of achieving the perfect and final cure of the plague of evil and sin.

54:5.12 (618.1) 11. An emergency council of ex-

가졌던 영화롭게 된 필사자인 막강한 메신저들인, 예전-필사자로 구성된 비상 협의회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셈에서 조직되었다. 그들은 만일 억압이라는 독단적 또는 즉결 방법들이 시도된다면 적어도 세 배나 되는 존재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하였다. 조언자들로 구성된 전체 유버사 무리단은, 그 결말을 가져오기까지 백만 년이 필요된다고 하더라도, 반란이 충분하고도 자연적인 과정을 밟도록 허용할 것을 가브리엘에게 충고하는 일에 동의하였다.

12. 시간은, 심지어 시간의 한 우주 안에서도, 상대적이다: 만약에 평균적인 기간의 삶을 산 유란시아 필사자가 전 세계적 대혼란을 재촉한 죄를 범하였다면, 그리고 만일 그가 죄를 저지른 지 이틀이나 또는 삼일 안에 체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였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긴 시간으로 보이겠는가? 그렇지만 루시퍼의 판결이 유란시아 햇수로 10만년 동안 완결되지 못했고, 만약 지금 그것이 시작된다 해도, 바로 그러한 기간과 비슷하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유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대적 시간 상실은 루시퍼의 범죄가 그것의 범행에 2.5초 안에 시도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파라다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판결은 법령과 동시적이다.

루시퍼 반란을 독단적으로 중지시키지 않은 것에는, 너희에게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숫자의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서술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나는 악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영적으로 소멸하는 전체 과정을 밟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48개의 이유들을 우리가 유버사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릴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추가적 이유들이 똑같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제 6 장. 사랑의 승리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진화적 필사자들은 루시퍼 반란을 납득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반도들을 다루는 기법이 신성한 사랑을 입증한다는 것을 그것을 돌이켜 반영해보는 모든 사색가에게 분명하게 되어야만 한다. 반도들에게 확장된 사랑 넘치는 자비가 많은 죄 없는 결백한 존재들을 재판과 시련 속에 포함해 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극도로 혼란스런 이들 모든 개인성들은 모든-지혜로운 재판관들이 공의는 물론 마찬가지로 자비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판결할 것임을 안전하게 믿어도 될 것이다.

지능존재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 둘 모두 사랑에 지배당한다. 만약에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이 인간성에 대한 신성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신(神) 현시활동의 다른 모든 위상들보다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들과 반역-죄와 죄인들—을 향한 우주 통치자들의 태도의 여러

mortals consisting of Mighty Messengers, glorified mortals who had had personal experience with like situations, together with their colleagues, was organized on Jerusem. They advised Gabriel that at least three times the number of beings would be led astray if arbitrary or summary methods of suppression were attempted. The entire Uversa corps of counselors concurred in advising Gabriel to permit the rebellion to take its full and natural course, even if it should require a million years to wind up the consequences.

54:5.13 (618.2) 12. Time, even in a universe of time, is relative: If a Urantia mortal of average length of life should commit a crime which precipitated world-wide pandemonium, and if he were apprehended, tried, and executed within two or three days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would it seem a long time to you? And yet that would be nearer a comparison with the length of Lucifer's life even if his adjudication, now begun, should not be completed for a hundred thousand Urantia years. The relative lapse of time from the viewpoint of Uversa, where the litigation is pending, could be indicated by saying that the crime of Lucifer was being brought to trial within two and a half seconds of its commission. From the Paradise viewpoint the adjudication is simultaneous with the enactment.

54:5.14 (618.3) There are an equal number of reasons for not arbitrarily stopping the Lucifer rebellion which would be partially comprehensible to you, but which I am not permitted to narrate. I may inform you that on Uversa we teach forty-eight reasons for permitting evil to run the full course of its own moral bankruptcy and spiritual extinction. I doubt not that there are just as many additional reasons not known to me.

6. THE TRIUMPH OF LOVE

54:6.1 (618.4) Whatever the difficulties evolutionary mortals may encounter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 Lucifer rebellion, it should be clear to all reflective thinkers that the technique of dealing with the rebels is a vindication of divine love. The loving mercy extended to the rebels does seem to have involved many innocent beings in trials and tribulations, but all these distraught personalities may securely depend upon the all-wise Judges to adjudicate their destinies in mercy as well as justice.

54:6.2 (618.5) In all their dealings with intelligent beings, both the Creator Son and his Paradise Father are love dominated.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many phases of the attitude of the universe rulers toward rebels and rebellion — sin and sinners — unless it be remembered that God as a Father takes precedence over all other

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들이 모두 자비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사실도 상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큰 가족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심각한 그릇된 행위를 저지른 자기 자녀들 중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품행이 옳지 못한 이 자식에게 자비를 확장시키기 위해 행실이 바른 다른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을 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한 결국 생겨나는 것들은 필연적이다; 그러한 모험은 사랑스러운 부모를 갖게 되는 그리고 가족 집단의 어떤 구성원이 되는 실체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한 가족의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의 의로운 행위성에 의해 유익을 얻으며; 마찬가지로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의 잘못된 행위성으로 인한 직접적 시간-영향들을 겪는다. 가족들, 집단들, 종족들, 세계들, 체계들, 별자리들, 그리고 우주들은 개별성을 소유하는 관계적-연합의 관계체들이다; 그러므로 크든지 작든지 그러한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은 관계되는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옳은 행위와 그릇된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일 너희가 너희 가족, 어떤 동료 시민 또는 동료 필사자, 심지어 체계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의 반란의 어떤 구성원의 죄로 말미암는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 친구들, 또는 상급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무엇을 견디어내야 하는지 상관없이—그러한 시련들이 과도기 고통이라는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안심해도 좋다. 집단 안에서의 비행이 이들 형제우애에 미치는 결과 중, 그 어떤 것도, 결코 너희의 영원한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파라다이스 상승과 하느님 달성에서의 너희의 신성한 권한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반역이라는 죄에 변함없이 동반하는 이들 시련들, 지연들 그리고 실망에는 보상이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루시퍼 반역에 대한 가치 있는 많은 반향들 중에서, 나는 오직 필사자 상승자들의 향상된 생애에만 주의를 집중할 것인데, 그들은 죄의 궤변에 대항함으로써 장차 막강한 메신저들, 나와 같은 계층에서의 동료가 되는 줄에 자리를 차지했다. 악한 에피소드를 견디었던 모든 존재는, 그로써 자신의 행정-관리적 지위를 즉각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자신의 영적 가치를 강화시켰다.

처음에는 루시퍼 격변이 체계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에 대하여 완화되지 못할 재난이 될 것처럼 보였다. 점진적으로 이익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체계 시간으로 2만 5천년(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들이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이 초래된 악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

phases of Deity manifestation in all the dealings of divinity with humanity. It should also be recalled that the Paradise Creator Sons are all mercy motivated.

54:6.3 (618.6) If an affectionate father of a large family chooses to show mercy to one of his children guilty of grievous wrongdoing, it may well be that the extension of mercy to this misbehaving child will work a temporary hardship upon all the other and well-behaved children. Such eventualities are inevitable; such a risk is inseparable from the reality situation of having a loving parent and of being a member of a family group. Each member of a family profits by the righteous conduct of every other member; likewise must each member suffer the immediate time-consequences of the misconduct of every other member. Families, groups, nations, races, worlds, systems, constellations, and universes are relationships of association which possess individuality; and therefore does every member of any such group, large or small, reap the benefits and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e rightdoing and the wrongdoing of all other members of the group concerned.

54:6.4 (619.1) But one thing should be made clear: If you are made to suffer the evil consequences of the sin of some member of your family, some fellow citizen or fellow mortal, even rebellion in the system or elsewhere — no matter what you may have to endure because of the wrongdoing of your associates, fellows, or superiors — you may rest secure in the eternal assurance that such tribulations are transient afflictions. None of these fraternal consequences of misbehavior in the group can ever jeopardize your eternal prospects or in the least degree deprive you of your divine right of Paradise ascension and God attainment.

54:6.5 (619.2) And there is compensation for these trials, delays, and disappointments which invariably accompany the sin of rebellion. Of the many valuable repercussions of the Lucifer rebellion which might be named, I will only call attention to the enhanced careers of those mortal ascenders, the Jerusalem citizens, who, by withstanding the sophistries of sin, placed themselves in line for becoming future Mighty Messengers, fellows of my own order. Every being who stood the test of that evil episode thereby immediately advanced his administrative status and enhanced his spiritual worth.

54:6.6 (619.3) At first the Lucifer upheaval appeared to be an unmitigated calamity to the system and to the universe. Gradually benefits began to accrue. With the passing of twenty-five thousand years of system time (twenty thousand years of Urantia time), the Melchizedeks began to teach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Lucifer's folly had come to

다. 전체의 악은 그때까지 거의 고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특성의 고립된 세계들에서만 증가되었고, 반면에 우주와 초우주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반향들이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었다. 멜키세덱들은 이제 사타니아 반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선한 것들이 전체 악의 합계보다 수천 배에 달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릇된 행위의 그러한 색다르고도 유익한 추수는 오직, 에덴시아에 있는 별자리 아버지들로부터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루시퍼의 상급자들 모든 분 전체의 현명하고 신성하며 자비로운 태도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필연적인 선을 증진시켜 왔으며; 유죄 선고를 받을 악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법 충분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모든-지혜이신 멀리 내다보는 우주 통치자들이 점점 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그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타니아 반역자들을 체포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많은 이유들은 차치하고, 이 한 가지 소득은 왜 이 죄인들이 더 빨리 억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선고를 받고 궤멸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시간에 매여 있는 필사자 지능체들은 우주 관련사들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모든-지혜이신 행정-관리자들의 시간 지연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들 문제에 관한 인간 사고(思考)의 한 가지 잘못된 만일 죄가 그들의 세계를 저주하지 않았다면 진화하는 행성에 있는 모든 진화적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생애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관념에 있다. 생존을 거부하는 능력은 루시퍼 반역의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필사자 사람은 파라다이스 생애에 대한 자유의지 선택의 자질을 항상 소유해 왔다.

너희가 생존하는 체험 속에서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너희는 우주 개념들을 넓히고 의미들과 가치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루시퍼와 사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왜 반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는지를 더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한 궁극적 선(善)이 (만일 즉각적이지 아니라면) 시간에-제한되어 있는 악으로부터 어떻게 유래될 수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달성한 후에, 너희는 초천사 철학자들이 우주 조절의 이들 난해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실제로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되어도,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충분한 만족감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내가 우주 철학의 정상을 그렇게 달성하였을 때에도 그렇지 못하였다. 나는 초우주 안에서 관리-행정적 임무에 배정된 후에야 이 복잡성들에 대해 충분한 이

equal the evil incurred. The sum of evil had by that time become almost stationary, continuing to increase only on certain isolated worlds, while the beneficial repercussions continued to multiply and extend out through the universe and superuniverse, even to Havona. The Melchizedeks now teach that the good resulting from the Satania rebellion is more than a thousand times the sum of all the evil.

54:6.7 (619.4) But such an extraordinary and beneficent harvest of wrongdoing could only be brought about by the wise, divine, and merciful attitude of all of Lucifer's superiors, extending from the Constellation Fathers on Edentia to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The passing of time has enhanced the consequential good to be derived from the Lucifer folly; and since the evil to be penalized was quite fully developed within a comparatively short time, it is apparent that the all-wise and farseeing universe rulers would be certain to extend the time in which to reap increasingly beneficial results. Regardless of the many additional reasons for delaying the apprehension and adjudication of the Satania rebels, this one gain would have been enough to explain why these sinners were not sooner interned, and why they have not been adjudicated and destroyed.

54:6.8 (619.5) Shortsighted and time-bound mortal minds should be slow to criticize the time delays of the farseeing and all-wise administrators of universe affairs.

54:6.9 (620.1) One error of human thinking respecting these problems consists in the idea that all evolutionary mortals on an evolving planet would choose to enter upon the Paradise career if sin had not cursed their world. The ability to decline survival does not date from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Mortal man has always possessed the endowment of freewill choice regarding the Paradise career.

54:6.10 (620.2) As you ascend in the survival experience, you will broaden your universe concepts and extend your horizon of meanings and values; and thus will you be able the better to understand why such beings as Lucifer and Satan are permitted to continue in rebellion. You will also better comprehend how ultimate (if not immediate) good can be derived from time-limited evil. After you attain Paradise, you will really be enlightened and comforted when you listen to the superaphic philosophers discuss and explain these profound problems of universe adjustment. But even then, I doubt that you will be fully satisfied in your own minds. At least I was not even when I had thus attained the acme of universe philosophy. I did not achieve a full comprehension of these complexities until after I had been assigned to administrative duties in the superuniverse, where

해를 성취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실제적인 체험에 의해 조화우주 평형과 영적 철학 안에서 그러한 다방면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기에 충분한 개념적 능력을 획득하였다.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상승할 때, 너희는 우주 관리-행정의 문제를 지닌 듯한 많은 모습들이 오직 증가되는 이 체험적 능력의 성취에 따라 그리고 증진된 영적 통찰력의 달성에 따라 납득될 수 있을 뿐임을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이다.

[현재 오르본톤 초우주 정부에 배정되었고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 우주들의 첫 번째 체계 반역에서 체험적으로 생존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by actual experience I have acquired conceptual capacity adequate for the comprehension of such many-sided problems in cosmic equity and spiritual philosophy. As you ascend Paradiseward, you will increasingly learn that many problematic featur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can only be comprehended subsequent to the acquirement of increased experiential capacity and to the achievement of enhanced spiritual insight. Cosmic wisdom is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cosmic situations.

54:6.11 (620.3)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of experiential survival in the first system rebellion in the universes of time now attached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of Orvonton and acting in this matter by request of Gabriel of Salvington.]

제 55 편 빛과 생명의 구체

⇨ 054

유랜시아 책

056 ⇨

부 II. 지역우주

제 55 편 빛과 생명의 구체

섹션

소개

- 제 1 장. 모른시아 성전
- 제 2 장. 죽음과 전환
- 제 3 장. 황금 시대
- 제 4 장. 행정적 재(再)조절
- 제 5 장. 물질적 발달의 절정
- 제 6 장. 개별 필사자
- 제 7 장. 첫 번째, 즉 행성 단계
- 제 8 장. 두 번째, 즉 체계 단계
- 제 9 장. 세 번째, 즉 별자리 단계
- 제 10 장. 네 번째, 즉 지역우주 단계
- 제 11 장.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 단계들
- 제 12 장. 일곱 번째, 즉 초우주 단계

소개

빛과 생명의 시기는 시간과 공간 세계의 최종적인 진화적 달성이다. 원시인의 초기 시대 이후로, 그렇게 거주민이 사는 세계는 이어지는 행성 시대들—행성영주 이전- 그리고 이후- 시대, 아담의-이후 시대, 치안법관 아들 이후 시대, 그리고 중여 아들 이후 시대—을 지나 왔다. 그 후에 그러한 세계는, 신성한 진리와 우주적 지혜에 대한 삼위 일체 교사 아들들의 계속적인 진보의 계시들과 함께 그들의 이어지는 행성 사명들의 사명활동에 의해, 최고조에 달한 진화적 달성, 빛과 생명의 정착된 지위를 위해 준비된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최종적인 행성 시대를 맞이하는 일에 교사 아들들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도움을 항상 받고 멜기세덱들의 도움을 가끔 받는다.

교사 아들들의 최종적인 행성 임무가 끝날 때 그들에 의해 개시되는 이 빛과 생명의 시대는 거

PAPER 55

THE SPHERES OF LIGHT AND LIFE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Morontia Temple
- 2. Death and Translation
- 3. The Golden Ages
- 4. Administrative Readjustments
- 5. The Acme of Material Development
- 6. The Individual Mortal
- 7.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 8. The Second or System Stage
- 9.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 10.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 11. The Minor and Major Sector Stages
- 12.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INTRODUCTION

55:0.1 (621.1) THE age of light and life is the final evolutionary attainment of a world of time and space. From the early times of primitive man, such an inhabited world has passed through the successive planetary ages — the pre- and the post-Planetary Prince ages, the post-Adamic age, the post-Magisterial Son age, and the postbestowal Son age. And then is such a world made ready for the culminating evolutionary attainment,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by the ministry of the successive planetary mission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with their ever-advancing revelations of divine truth and cosmic wisdom. In these endeavors the Teacher Sons enjoy the assistance of the Brilliant Evening Stars always, and the Melchizedeks sometimes, in establishing the final planetary age.

55:0.2 (621.2) This era of light and life, inaugurated by the Teacher Sons at the conclusion of their final

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무기한적으로 계속된다. 정착된 지위로 나아가는 각각의 단계는 치안법관 아들들의 사법적 조치들에 의해 연속되는 섭리시대들로 구분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사법적 조치들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어떤 면에서도 행성 사건들의 과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초우주의 주요 순환회로들 안에서의 실존을 달성한 행성들만이 계속적인 존속을 보장받지만, 우리가 아는 한,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이 세계들은 모두 미래 시간의 영원한 시대들에 두루 계속 나아갈 운명에 있다.

진화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의 전개에는 일곱 단계들이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영-융합 필사자들의 세계들이 조절자-융합 계열들의 그것들과 똑같은 계통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빛과 생명의 이 일곱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또는 행성 단계.
2. 두 번째 또는 체계 단계.
3. 세 번째 또는 별자리 단계.
4. 네 번째 또는 지역우주 단계.
5. 다섯 번째 또는 소구역 단계.
6. 여섯 번째 또는 대구역 단계.
7. 일곱 번째 또는 초우주 단계.

이 설명의 결론에서, 진보하는 발달의 이 단계들이 우주 조직과 관련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모든 단계의 행성 가치들은 다른 세계들의 발달에 대해 매우 독립된 또는 우주 관리-행정의 초(超)행성 차원들에 대해 매우 독립된 모든 세계들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planetary mission, continues indefinitely on the inhabited worlds. Each advancing stage of settled status may be segregated by the judicial actions of the Magisterial Sons into a succession of dispensations; but all such judicial actions are purely technical, in no way modifying the course of planetary events.

55:0.3 (621.3) Only those planets which attain existence in the main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 are assured of continuous survival, but as far as we know, thes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destined to go on throughout the eternal ages of all future time.

55:0.4 (621.4) There are seven stages in the unfoldment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on an evolutionary world, and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orlds of the Spirit-fused mortals evolve along lines identical with those of the Adjuster-fusion series. These seven stages of light and life are:

55:0.5 (621.5) 1.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55:0.6 (621.6) 2. The second or system stage.

55:0.7 (621.7) 3.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55:0.8 (621.8) 4.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55:0.9 (621.9) 5. The fifth or minor sector stage.

55:0.10 (621.10) 6. The sixth or major sector stage.

55:0.11 (621.11) 7.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55:0.12 (621.12) At the conclusion of this narrative these stages of advancing development are described as they relate to the universe organization, but the planetary values of any stage may be attained by any world quite independent of the development of other worlds or of the superplanetary levels of universe administration.

제 1 장. 모론시아 성전

거주되는 세계의 수도에 있는 모론시아 성전의 현존은 빛과 생명의 정착된 시대들에게 그러한 구체가 받아들여졌다는 증명서와 같다.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마지막 임무를 완료하면서 세계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진화적 달성의 이 최종적 신(新)시대의 막을 열며; “거룩한 성전이 땅 위로 내려오는” 그 날을 주관한다. 이 사건은, 빛과 생명의 시대의 여명을 알려주는데, 이 위대한 시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는, 행성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개인적 현존에 의해 항상 영광을 받는다.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이 성전 안에서는, 파라다이스의 이 증여 아들이 오랫동안의 행성영주를 새로운 행성주권자로 선포하고 그러한 신실한 라노난덱 아들에게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하고 행성 관련 사들에 대한 권한을 확장시킨다. 체계 주권자는 또한 이 선언서들의 증거로 출현하고 말한다.

1. THE MORONTIA TEMPLE

55:1.1 (622.1) The presence of a morontia temple at the capital of an inhabited world is the certificate of the admission of such a sphere to the settled ages of light and life. Before the Teacher Sons leave a world at the conclusion of their terminal mission, they inaugurate this final epoch of evolutionary attainment; they preside on that day when the “holy temple comes down upon earth.” This event, signaling the dawn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is always honored by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at planet, who comes to witness this great day. There in this temple of unparalleled beauty, this bestowal Son of Paradise proclaims the long-time Planetary Prince as the new Planetary Sovereign and invests such a faithful Lanonandek Son with new powers and

모론시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심부는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경배실이다. 오른쪽은 지금은 행성주권자인, 이전 행성영주의 보좌이다; 성전 안에 나타났을 때, 이 라노난덱 아들은 영역의 비교적 더 영적인 개별존재들의 눈에 보인다. 왼쪽에는 행성에 배정된 최종자의 대리 우두머리의 보좌가 있다.

행성 성전들이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체 안에서 어떤 실재적 물질도 체계 본부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 각각의 고안건축물은 체계 본부에서 축소모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이 승인된 이들 계획을 행성으로 가져온다. 여기에서, 주(主)물리통제자들과 관계적-연합하여, 그들은 설계도에 따라 모론시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평균적인 모론시아 성전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앉을 수 있다. 이 건물들은 경배, 연극 또는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 이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행성의 특별한 예식에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체계 주권자와 또는 지고자들과의 통신, 영 존재들의 개인성 현존을 드러내도록 고안된 특별한 시각화 예식들, 그리고 고요한 조화우주 깊은 사색. 조화우주 철학 학교들이 그들의 졸업 연습을 여기에서 수행하며 영역의 필사자들이 높은 사회봉사의 성취에 대한 그리고 다른 뛰어난 재능들에 대한 행성적 표창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기에서이다.

그러한 모론시아 성전은 또한 모론시아 실존에게 살아있는 필사자들의 전환을 목격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환 성전이, 자신들의 신성한 조절자들과의 최종적인 융합을 그 안에서 체험한 저들 필사자들의 물리적 몸체들을 아주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타오르는 불의 맹렬한 빛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모론시아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큰 세계의 경우 이 이별 섬광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환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 보조 모론시아 삶 성전들이 행성의 다른 지역들에서 제공된다. 얼마 전에 나는 25개 모론시아 성소들이 작동하고 있는 먼 북쪽에 있는 세계에 머문 적이 있다.

안정되기 이전의 세계들, 모론시아 성전들이 없는 행성들에서는, 전환 후보자의 물질 몸체가 중도 창조체들과 물리통제자들에 의해 상승되는 행성의 대기 속에서 이들 융합 섬광이 여러 번 발생한다.

extended authority over planetary affairs. The System Sovereign is also present and speaks in confirmation of these pronouncements.

55:1.2 (622.2) A morontia temple has three parts: Centermost is the sanctuary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n the right is the seat of the former Planetary Prince, now Planetary Sovereign; and when present in the temple, this Lanonandek Son is visible to the more spiritual individuals of the realm. On the left is the seat of the acting chief of finalizers attached to the planet.

55:1.3 (622.3) Although the planetary temples have been spoken of as “coming down from heaven,” in reality no actual material is transported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The architecture of each is worked out in miniature on the system capital, and the Morontia Power Supervisors subsequently bring these approved plans to the planet. Here, in association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they proceed to build the morontia temple according to specifications.

55:1.4 (622.4) The average morontia temple seats about three hundred thousand spectators. These edifices are not used for worship, play, or for receiving broadcasts; they are devoted to the special ceremonies of the planet, such as: communications with the System Sovereign or with the Most Highs, special visualization ceremonies designed to reveal the personality presence of spirit beings, and silent cosmic contemplation. The schools of cosmic philosophy here conduct their graduation exercises, and here also do the mortals of the realm receive planetary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of high social service and for other outstanding attainments.

55:1.5 (622.5) Such a morontia temple also serves as the place of assembly for witnessing the translation of living mortals to the morontia existence. It is because the translation temple is composed of morontia material that it is not destroyed by the blazing glory of the consuming fire which so completely obliterates the physical bodies of those mortals who therein experience final fusion with their divine Adjusters. On a large world these departure flares are almost continuous, and as the number of translations increases, subsidiary morontia life shrines are provided in different areas of the planet. Not long since I sojourned on a world in the far north whereon twenty-five morontia shrines were functioning.

55:1.6 (622.6) On presettled worlds, planets without morontia temples, these fusion flashes many times occur in the planetary atmosphere, where the material body of a translation candidate is elevated by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제 2 장. 죽음과 전환

자연적인, 물질적 죽음은 필사자적 필연성이 아니다. 진보된 진화 존재들의 대다수, 빛과 생명의 최종적 시대에 존재하는 세계들의 시민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모른시아 실존으로 직접 전환된다.

물질적 삶으로부터 모른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이 체험—불멸 혼의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융합—은 행성의 진화적 발전과 같은 정도로 빈도가 증가한다. 처음에는 각 시대에 오직 소수의 필사자만이 영적 진보의 전환 차원을 달성하지만, 교사 아들들의 이어지는 시대들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많은 조절자 융합이 진보하는 이들 필사자의 길어지는 삶이 마감되기 전에 발생하며;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의 시대가 되면, 뛰어난 이 필사자들 중 거의 4분의 1이 자연적 죽음에서 제외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 속에서 오래 지나갈수록 중도 창조체들 또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혼-조절자 연합이 가능한 지위로 다가감을 느끼며 이것을 운명 수호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뒤에 그들은 관할권 아래에서 이 필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최종자 집단에게 이 문제들을 전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필사자로 하여금 모든 행성 임무들을 떠나게 하는 행성주권자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가 기원된 세계에 작별을 고하며, 행성주권자의 내부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곳에서 모른시아 변화, 진화라는 물질적 권역으로부터 영-이전(以前) 진보의 모른시아 차원으로서의 전환 순간을 기다린다.

그러한 융합 후보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일하는 집단이 모른시아 성전에서 다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융합 후보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모인 그들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중앙 무대 주변에 분포된다. 개입하는 천상의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마련되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육신으로부터 구원된 자들을 위하여 자연적 죽음이 이루는 모든 것을 진화적 필사자를 위해 그것으로 인하여 행함으로써, 물질적 육신의 족쇄들로부터 상승 후보자를 구원하는 “생명 섬광”의 순간에 에너지 현시의 작용으로부터 물질적 필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융합 후보자들이 넓은 성전에서 동시에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필사자들이 영적인 감격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승을 목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필사자들이 자신들의 시신을 지상의 원소들의 세계로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들의 초기 시대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인간 진화의 초기 신(新)시대의 눈물로 얼룩지고 비탄에 젖은 광경들은, 하느님을 아는 이 필사자들이 소멸하는 장엄함과 상승하는 영광의 영적

2. DEATH AND TRANSLATION

55:2.1 (623.1) Natural, physical death is not a mortal inevitability. The majority of advanced evolutionary beings, citizens on worlds existing in the final era of light and life, do not die; they are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life in the flesh to the morontia existence.

55:2.2 (623.2) This experience of translation from the material life to the morontia state — fusion of the immortal soul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 increases in frequency commensurate with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the planet. At first only a few mortals in each age attain translation levels of spiritual progress, but with the onset of the successive ages of the Teacher Sons, more and more Adjuster fusions occur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lengthening lives of these progressing mortals; and by the time of the terminal mission of the Teacher Sons,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these superb mortals are exempt from natural death.

55:2.3 (623.3) Farther along in the era of light and life the midway creatures or their associates sense the approaching status of probable soul-Adjuster union and signify this to the destiny guardians, who in turn communicate these matters to the finaliter group under whose jurisdiction this mortal may be functioning; then there is issued the summons of the Planetary Sovereign for such a mortal to resign all planetary duties, bid farewell to the world of his origin, and repair to the inner temple of the Planetary Sovereign, there to await morontia transit, the translation flash, from the material domain of evolution to the morontia level of prespirit progression.

55:2.4 (623.4) When the family, friends, and working group of such a fusion candidate have forgathered in the morontia temple, they are distributed around the central stage whereon the fusion candidates are resting, meantime freely conversing with their assembled friends. A circle of intervening celestial personalities is arranged to protect the material mortals from the action of the energies manifest at the instant of the “life flash” which delivers the ascension candidate from the bonds of material flesh, thereby doing for such an evolutionary mortal everything that natural death does for those who are thereby delivered from the flesh.

55:2.5 (623.5) Many fusion candidates may be assembled in the spacious temple at the same time. And what a beautiful occasion when mortals thus forgather to witness the ascension of their loved ones in spiritual flames, and what a contrast to those earlier ages when mortals must commit their dead to the embrace of the terrestrial elements! The scenes of weeping and wailing characteristic of earlier epochs of human evolution are now replaced by ecstatic joy and the sublimest

불꽃들에 의해 자신들의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그들이 떠나갈 때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깐 동안의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이제는 무아지경의 기쁨과 최고로 장엄한 감격으로 대치된다.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들에서는 “장례식”이 최극의 기쁨과 심오한 만족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이 있는 행사이다.

진보하는 이 필사자들의 혼들은 신앙과 소망 그리고 확신으로 점점 더 채워진다. 전환 성소 주변에 모인 그들에게 스며드는 영은, 자기 집단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졸업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자신들의 동료들 중 하나에게 큰 상이 수여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기쁨에 넘친 친구들과 친척들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만일 비교적 덜 진보된 필사자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이 동일한 명랑함과 쾌활함의 어떤 것에 비추어 보도록 배울 수만 있다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필사자 관찰자들은 융합 섬광 때문에 전환되는 자신들의 연관-동료들을 전혀 볼 수 없다. 조절자에 의해 진행된 그러한 전환된 혼들은 적절한 모론시아-훈련 세계의 부활실로 직접 옮겨진다. 살아있는 인간 존재들이 모론시아 세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된 이 활동행위들은 빛과 생명 안에 처음으로 정착되었던 때 그 날 그러한 세계에 배치되었던 천사장에 의해 감독된다.

세계가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를 달성할 때가 되면, 반 이상의 필사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로부터 전환에 의해 행성을 떠난다. 그러한 죽음의 감소가 계속되지만, 나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이 포함된 어떤 체계도, 심지어는 생명 속에 오랫동안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의 족쇄로부터 탈출하는 기법으로서의 자연적인 죽음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행성 진화의 그러한 높은 상태가 균일하게 달성되기 전까지는, 지역우주의 모론시아-훈련 세계들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문화 구체로서 계속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의 배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가 관측한 바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아마 그러한 지위는 정착된 행성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 다음 먼 훗날에 달성될지도 모르겠다.

정착된 구체들의 꽃이 만발한 시대에서의 전환된 혼들은 맨션세계들을 거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체계 또는 별자리의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머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론시아 삶의 비교적 초기 위상들 중 어떤 것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적 실존으로부터 반(半)영적 지위로의 모론시아 변환을 거의 탈피한 상승 필사자들일 뿐이다. 상승 생애 속에 있는 그러한 아들-점유 필사자들의 최초 체험은 우주 본부의 진보 세계들에 대한 봉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별의 이 학습 세계들로부터 자신들이 지나온 바로 그 세계들에게로 선생으로

enthusiasm as these God-knowing mortals bid their loved ones a transient farewell as they are removed from their material associations by the spiritual fires of consuming grandeur and ascending glory. On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funerals” are occasions of supreme joy, profound satisfaction, and inexpressible hope.

55:2.6 (623.6) The souls of these progressing mortals are increasingly filled with faith, hope, and assurance. The spirit permeating those gathered around the translation shrine resembles that of the joyful friends and relatives who might assemble at a graduating exercise for one of their group, or who might come together to witness the conferring of some great honor upon one of their number. And it would be decidedly helpful if less advanced mortals could only learn to view natural death with something of this same cheerfulness and lightheartedness.

55:2.7 (624.1) Mortal observers can see nothing of their translated associates subsequent to the fusion flash. Such translated souls proceed by Adjuster transit direct to the resurrection hall of the appropriate morontia-training world. These transactions concerned with the translation of living human beings to the morontia world are supervised by an archangel who was assigned to such a world on the day when it was first settled in light and life.

55:2.8 (624.2) By the time a world attains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more than half the mortals leave the planet by translation from among the living. Such diminishment of death continues on and on, but I know of no system whose inhabited worlds, even though long settled in life, are entirely free from natural death as the technique of escape from the bonds of flesh. And until such a high state of planetary evolution is uniformly attained, the morontia-training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must continue in service as educational and cultural spheres for the evolving morontia progressors. The elimination of death is theoretically possible, but it has not yet occurred according to my observation. Perhaps such a status may be attained during the faraway stretches of the succeeding epochs of the seventh stage of settled planetary life.

55:2.9 (624.3) The translated souls of the flowering ages of the settled spheres do not pass through the mansion worlds. Neither do they sojourn, as students, on the morontia worlds of the system or constellation. They do not pass through any of the earlier phases of morontia life. They are the only ascending mortals who so nearly escape the morontia transition from material existence to semispirit status. The initial experience of such *Son-seized* mortals in the ascension career is in the services of the progression worlds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And from these study

서 돌아가는데, 그 후에는 필사자 상승의 확립된 경로에 의해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너희가 진보된 발달 단계에 있는 행성을 방문할 수만 있다면, 맨션 그리고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서로 다른 접대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빨리 파악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높게 진화된 구체들로부터 지나온 존재들이 유란시아와 같은 혼란하고 뒤쳐진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평균적인 필사자보다 훨씬 앞서서 파라다이스 상승을 다시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빨리 납득하게 될 것이다.

인간 존재들이 행성 달성의 어떤 차원으로부터 모론시아 세계들로 상승하였든지, 일곱 맨션구체들은 그들이 태어난 행성들의 발전 지위 때문에 그들이 지나쳐 오지 못한 모든 것 전체를 선생-학생으로서 체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우주는 그의 상승 체험에 필수적인 어떤 것을 어떤 상승자도 빼을 수 없도록 보장하게 고안된 이 균등화 기법들의 적용을 반드시 이룩한다.

제 3 장. 황금 시대

빛과 생명의 이 시대 동안 세계는 점점 더 행성주권자의 아버지다운 통치 아래에서 번영한다. 이때가 되면 세계들은 한 언어, 한 종교, 그리고 평균적인 구체에서는 한 인종의 추진력 아래에서 진보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완전하지 않다. 이 세계들은 준비가 잘된 병원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집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노년의 허약함과 노망으로 인한 혼란함에 따르는 우연한 현상적인 질병과 우연한 상처를 돌보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질병은 전반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들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지만; 그러한 세계들은 행성영주 이전 시대 동안에 해당하는 원시인의 초기 시대와 비교하면 파라다이스와 같다. 너희는 그러한 세계를 직관적으로—너희가 이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행성으로 갑자기 옮겨질 수 있다면—땅 위에 있는 천국으로 묘사할 것이다.

물질적인 관련사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 정부는 상대적인 진보와 완전의 이 시대에 두루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내가 최근에 방문한 바 있는 빛과 생명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세계의 공공 활동은 십일조(十壹租)의 기법에 의해 재력을 유지한다. 모든 성인 노동자—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민들—는 자신의 수입에서 10%를 지불하거나 공공 기금에 납부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지불되었다:

worlds of Salvington they go back as teachers to the very worlds they passed by, subsequently going on inward to Paradise by the established route of mortal ascension.

55:2.10 (624.4) Could you but visit a planet in an advanced stage of development, you would quickly grasp the reasons for providing for the differential reception of ascending mortals on the mansion and higher morontia worlds. You would readily understand that beings passing on from such highly evolved spheres are prepared to resume their Paradise ascent far in advance of the average mortal arriving from a disordered and backward world like Urantia.

55:2.11 (624.5) No matter from what level of planetary attainment human beings may ascend to the morontia worlds, the seven mansion spheres afford them ample opportunity to gain in experience as teacher-students all of everything which they failed to pass through because of the advanced status of their native planets.

55:2.12 (624.6) The universe is unfailing in the application of these equalizing techniques designed to insure that no ascender shall be deprived of aught which is essential to his ascension experience.

3. THE GOLDEN AGES

55:3.1 (624.7) During this age of light and life the world increasingly prospers under the fatherly rule of the Planetary Sovereign. By this time the worlds are progressing under the momentum of one language, one religion, and, on normal spheres, one race. But this age is not perfect. These worlds still have well-appointed hospitals, homes for the care of the sick. There still remain the problems of caring for accidental injuries and the inescapable infirmities attendant upon the decrepitude of old age and the disorders of senility. Disease has not been entirely vanquished, neither have the earth animals been subdued in perfection; but such worlds are like Paradise in comparison with the early times of primitive man during the pre-Planetary Prince age. You would instinctively describe such a realm — could you be suddenly transported to a planet in this stage of development — as heaven on earth.

55:3.2 (625.1) Human government in the conduct of material affairs continues to function throughout this age of relative progress and perfection. The public activities of a world in the first stage of light and life which I recently visited were financed by the tithing technique. Every adult worker — and all able-bodied citizens worked at something — paid ten per cent of his income or increase to the public treasury, and it was disbursed as follows:

1. 3%가 진리의 증진—과학, 교육, 철학—에 사용되었음.

2. 3%가 미(美)—연극, 사회적 여가, 예술—에 지출되었음.

3. 3%가 선(善)—사회적 봉사, 이타심, 종교—에 바쳐졌음.

4. 1%가 우연한 현상, 질병, 노년, 또는 예방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생기는 노동 불가능의 위험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보험금에 배정되었다.

이 행성의 천연 자원들은 사회적 소유물, 공동사회의 자산으로 관리-운영되었다.

이 세계에서는 시민(市民)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가 “최극 봉사”의 등급이었는데, 모론티아 성전에서 전에 수여된 유일하게 인정받는 등급이다. 이 상(賞)은 초물질적 발견 또는 행성의 사회적 봉사의 어떤 위상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두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되었다.

사회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위들 대부분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동으로 차지한다. 대부분의 교육 역시 공동으로 행해지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법 위원회들도 비슷한 연관 쌍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뛰어난 세계에서는 자녀를 잉태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한 가족에서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나이가 비슷할 때, 자녀들은 자신들의 서로간의 훈련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계에서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의 통달에서 다양한 성취의 진보하는 권역과 분야에서 격렬한 분투의 경쟁체계에 따라 아낌없이 훈련된다. 영화롭게 된 그러한 구체들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을 풍부하게 내보이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오히려 진리와 실수, 선(善)과 악, 죄와 정의(正義) 사이에서 선택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보된 진화적 행성들에 있는 필사자 실존들에게 부여된 어떤 특별한, 어쩔 수 없는 벌칙이 존재한다. 정착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세 번째 단계를 넘어 진보할 때, 모든 상승자들은, 소구역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진화의 비교적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과도기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운명되어 있다.

이어지는 이 시대들 각각은 행성 기능의 모든 위상들에서 진보된 성취를 나타낸다. 빛의 최초 시대에 진리의 계시는 우주들의 우주의 활동들을 포용할 정도로 커지게 되며, 반면에 두 번째 시대의 신(神) 연구는 칠중 하느님의 첫 번째 차원인 창조자 아들들의 본성, 임무, 사명활동, 관계적-연합, 기원, 그리고 운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정복

55:3.3 (625.2) 1. Three per cent was expended in the promotion of truth — science, education, and philosophy.

55:3.4 (625.3) 2. Three per cent was devoted to beauty — play, social leisure, and art.

55:3.5 (625.4) 3. Three per cent was dedicated to goodness — social service, altruism, and religion.

55:3.6 (625.5) 4. One per cent was assigned to the insurance reserves against the risk of incapacity for labor resultant from accident, disease, old age, or unpreventable disasters.

55:3.7 (625.6) The natural resources of this planet were administered as social possessions, community property.

55:3.8 (625.7) On this world the highest honor conferred upon a citizen was the order of “supreme service,” being the only degree of recognition ever to be granted in the morontia temple. This recognition was bestowed upon those who had long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ome phase of supermaterial discovery or planetary social service.

55:3.9 (625.8) The majority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posts were held jointly by men and women. Most of the teaching was also done jointly; likewise all judicial trusts were discharged by similar associated couples.

55:3.10 (625.9) On these superb worlds the childbearing period is not greatly prolonged. It is not best for too many years to intervene between the ages of a family of children. When close together in age, children are able to contribute much more to their mutual training. And on these worlds they are magnificently trained by the competitive systems of keen striving in the advanced domains and divisions of diverse achievement in the master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Never fear but that even such glorified spheres present plenty of evil, real and potential, which is stimulative of the choosing between truth and error, good and evil, sin and righteousness.

55:3.11 (625.10) Nevertheless, there is a certain, inevitable penalty attaching to mortal existence on such advanced evolutionary planets. When a settled world progresses beyond the third stage of light and life, all ascenders are destined, before attaining the minor sector, to receive some sort of transient assignment on a planet passing through the earlier stages of evolution.

55:3.12 (626.1) Each of these successive ages represents advancing achievements in all phases of planetary attainment. In the initial age of light the revelation of truth was enlarged to embrace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while the Deity study of the second age is the attempt to master the protean concept of the nature, mission,

하려는 시도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크기의 어떤 행성은, 매우 잘 정착되었을 때, 약 100개의 보조 관리-행정적 중심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보조 중심지들은 다음과 같은 분별화되는 관리-행정자들 중 하나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1. 통치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보좌관들로서 행동하도록 체계 본부로부터 데려온 젊은 물질아들들 그리고 딸들.

2. 특정한 세계들에서 이 의무들 그리고 비슷한 다른 의무들을 위해 조성되었던 행성영주의 반(半) 필사자 참모진의 자손.

3. 아담과 이브의 직접적인 행성 자손.

4. 물질화 되고 인간화된 중도 창조체들.

5. 자신들의 청원에 따라, 행성에서 어떤 중요한 관리-행정적 지위들을 그들이 계속 갖기 위하여, 우주 수령관계 역할을 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환으로부터 제외된, 조절자-융합 지위의 필사자들.

6. 모론시아 성전의 최극의 봉사에 대해 명령을 가외(加外)로 받아온 행성 관리-행정 학교의 특별하게 훈련된 필사자들.

7. 특별한 행성 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분명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에 따라 행성주권자의 지도 아래에서 시민에 의해 언젠가 선택될 올바르게 자격이 갖추어진 세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특정의 선택적 위원회.

빛과 생명의 높은 행성 운명을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란시아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는 질병, 퇴화, 전쟁, 다색 인종들, 그리고 복잡한 언어들의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다.

어떤 진화 세계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철학을 성취하기 전에는 빛으로의 정착달성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 한 종족이 되는 것은 그러한 성취가 크게 수월하겠지만, 유란시아의 많은 민족이 보다 높은 단계에 대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장. 행정적 재(再)조절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단계들에 있어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육신 속에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사명활동하기 위해 되돌아왔던 파라다이스 달성의 상승자들인 자발적인 최종의 무리단의 현명하고도 동정심 가득한 관리-행정 아래에서 장엄한 진보를 이룩한다. 이 최종자는 삼위일체 교사

ministry, associations, origin, and destiny of the Creator Sons, the first level of God the Sevenfold.

55:3.13 (626.2) A planet the size of Urantia, when fairly well settled, would have about one hundred subadministrative centers. These subordinate centers would be presided over by one of the following groups of qualified administrators:

55:3.14 (626.3) 1. Young Material Sons and Daughters brought from the system headquarters to act as assistants to the ruling Adam and Eve.

55:3.15 (626.4) 2. The progeny of the semimort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who were procreated on certain worlds for this and other similar responsibilities.

55:3.16 (626.5) 3. The direct planetary progeny of Adam and Eve.

55:3.17 (626.6) 4. Materialized and humanized midway creatures.

55:3.18 (626.7) 5. Mortals of Adjuster-fusion status who, upon their own petition, are temporarily exempted from translation by the order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universe chieftainship in order that they may continue on the planet in certain important administrative posts.

55:3.19 (626.8) 6. Specially trained mortals of the planetary schools of administration who have also received the order of supreme service of the morontia temple.

55:3.20 (626.9) 7. Certain elective commissions of three properly qualified citizens who are sometimes chosen by the citizenry by direction of the Planetary Sovereign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ability to accomplish some definite task which is needful in that particular planetary sector.

55:3.21 (626.10) The great handicap confronting Urantia in the matter of attaining the high planetary destiny of light and life is embraced in the problems of disease, degeneracy, war, multicolored races, and multilingualism.

55:3.22 (626.11) No evolutionary world can hope to progress beyond the first stage of settledness in light until it has achieved one language, one religion, and one philosophy. Being of one race greatly facilitates such achievement, but the many peoples of Urantia do not preclude the attainment of higher stages.

4. ADMINISTRATIVE READJUSTMENTS

55:4.1 (626.12) In the successive stages of settled existence the inhabited worlds make marvelous progress under the wise and sympathetic administration of the volunteer Corps of the Finality, ascenders of Paradise attainment who have come back to minister to their brethren in the

아들들과 협동하여 활동하지만, 그들은 모론시아 성전이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 관련사들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최종의 무리단의 행성 사명활동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천상의 무리가 철수한다. 그러나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들은 빛 가운데에서 진보하는 필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사명활동을 계속 한다; 정말로 그러한 천사들은 행성 삶 기간 동안 조화-협동하는 필사자 달성의 제3 조화우주 순환계에 점점 더 많은 인간 존재 집단들이 도달하는 데에 두루 계속 증가하는 숫자로 도래한다.

이것은 그들이 정착된 실존의 첫 번째 단계로부터 일곱 번째에 이르기까지 지나갈 때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점점 더 찬란한 달성을 이루는 계속적인 시대들의 전개에 참여한 계속적인 행정-관리적 조절들의 첫 번째에 불과하다.

1. 빛과 생명의 첫 번째 단계. 정착된 최초 단계에 있는 세계는 다음과 같은 세 명의 통치자들에 의해 관리-운영 된다:

1. 행성에서 기능하는 그러한 아들들로 이루어진 마지막 무리단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조언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에 의해 현재 충고를 받게 되어 있는, 행정주권자.

2. 최종자로 구성된 행성 무리단의 우두머리.

3. 영주-주권자 그리고 최종자의 우두머리의 이원적(二元的) 지도 체제의 통합자로서 함께 기능하는, 아담과 이브.

고양되고 해방된 중도 창조체가 세라핌천사 수호자와 최종자를 위해 통역자로 활동한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사아들의 최종적인 활동은 영역의 중도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진보된 행성 지위로 증진(또는 복귀)시키고, 정착된 구체의 새로운 관리-행정 체제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초기 아담의-통치체제의 이들 사촌들을 필사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시력의 범위에 이미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것은 주(主)물리통제자들의 커지게 된 행성 기능들과 연락하여 물질적 과학의 최종적인 발견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체계 주권자는, 첫 번째 정착 단계 이후, 언제든지 중도 창조체들을 해방시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생명운반자들과 물리통제자들의 도움에 의해 인간화되고, 그리고 생각 조절자들을 받은 후에, 모론시아 안에서,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해 나아간다.

주로 최종자를 위한 접촉 개인성들로서, 중도자들 중 일부는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 단계들에서 계속 활동하지만, 빛과 생명의 각 단계에 들어

flesh. These finaliters are active in co-operation with the Trinity Teacher Sons, but they do not begin their real participation in world affairs until the morontia temple appears on earth.

55:4.2 (626.13) Upon the formal inauguration of the planetary ministry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the majority of the celestial hosts withdraw. But the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continue their personal ministry to the progressing mortals in light; indeed such angels come in ever-increasing numbers throughout the settled ages since larger and larger groups of human beings reach the third cosmic circle of co-ordinate mortal attainment during the planetary life span.

55:4.3 (627.1) This is merely the first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ve adjustments which attend the unfolding of the successive ages of increasingly brilliant attainment on the inhabited worlds as they pass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stage of settled existence.

55:4.4 (627.2) 1. *The first stage of light and life.* A world in this initial settled stage is being administered by three rulers:

55:4.5 (627.3) a. The Planetary Sovereign, presently to be advised by a counseling Trinity Teacher Son, in all probability the chief of the terminal corps of such Sons to function on the planet.

55:4.6 (627.4) b. The chief of the planetary corps of finaliters.

55:4.7 (627.5) c. Adam and Eve, who function jointly as the unifiers of the dual leadership of the Prince-Sovereign and the chief of finaliters.

55:4.8 (627.6) Acting as interpreters for the seraphic guardians and the finaliters are the exalted and liberated midway creatures. One of the last acts of the Trinity Teacher Sons on their terminal mission is to liberate the midwayers of the realm and to promote (or restore) them to advanced planetary status, assigning them to responsible places in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settled sphere. Such changes have already been made in the range of human vision as enable mortals to recognize these heretofore invisible cousins of the early Adamic regime.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final discoveries of physical science in liaison with the enlarged planetary functions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5:4.9 (627.7) The System Sovereign has authority to release midway creatures any time after the first settled stage so that they may humanize in the morontia by the aid of the Life Carrier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after receiving Thought Adjusters, start out on their Paradise ascension.

55:4.10 (627.8) In the third and subsequent stages, some of the midwayers are still functioning, chiefly as contact personalities for the finaliters, but as

감에 따라, 새로운 계층의 연락 사명활동자들이 중도자들 대부분을 대체시키며; 그들 중 극소수는 빛의 네 번째 단계가 지날 때까지 계속 남는다. 일곱 번째 단계는 특정의 우주 창조체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첫 번째 아(亞) 절대적 사명활동자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 빛과 생명의 두 번째 단계. 이 신(新)시대는 필사 종족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더 많은 수고들을 함에 있어서 행성 통치자들의 자발적 충고자들이 되는 생명운반자의 도착에 의해 세계들에게 신호가 보내진다. 그리하여 생명운반자들은 인간 종족의 더 많은 진화—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적, 철학적, 조화우주, 그리고 영적 본성에 있어서 열등한 잠재를 갖는 뒤처지고 잔존하는 남은 자들을 과감하게 제거시킴으로 인하여 필사 종족을 더욱 정화시키는 일에 대한 그들의 감독을 확장시킨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생명을 계획하고 심는 그들은 물질아들들과 딸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해로운 영향력들을 갖고 있는 진화하는 종족을 없애는 충만하고도 무조건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단계 이후부터, 정착된 행성의 생애에 두루, 교사 아들들은 최종자에게 조언자로서 봉사한다. 그러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원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체계 주권자의 동의에 따라 그들이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 충고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최종자 무리단과 함께 봉사한다.

3. 빛과 생명의 세 번째 단계. 이 신(新)시대 동안,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은 칠중 하느님의 두 번째 위상인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되며, 이 초우주 통치자들의 대표자들은 행성 관리·행정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각시대에 있어서 최종자는 계속 증가하는 능력으로 활동한다. 최종자와 저녁별들(초(超)천사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사이에는 긴밀한 활동 관계가 존재한다.

이 시대 또는 뒤따르는 시대 동안, 4인조의 사명활동-영에 의해 보조를 받는 교사 아들은 세상 관련사들에 대한 공동 관리행정자로서 행성주권자와 이 때 연관하게 되는, 선발된 필사자 우두머리 집행자에게 배정된다. 이 필사자 우두머리 집행자들은 행성 시간으로 25년 동안 봉사하며, 행성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긴-세월 배정된 그들의 세계로부터 분명하게 풀려나는 일이 쉽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개발이다.

4인조 사명활동-영은 구체의 세라핌천사 우두머리, 초우주 2품천사의 조언자, 전환의 천사장,

each stage of light and life is entered, new orders of liaison ministers largely replace the midwayers; very few of them ever remain beyond the fourth stage of light. The seventh stage will witness the coming of the first absonite ministers from Paradise to serve in the places of certain universe creatures.

55:4.11 (627.9) 2. The second stage of light and life.

This epoch is signalized on the worlds by the arrival of a Life Carrier who becomes the volunteer adviser of the planetary rulers regarding the further efforts to purify and stabilize the mortal race. Thus do the Life Carrie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human race — phys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then they extend their supervision to the further purification of the mortal stock by the drastic elimination of the retarded and persisting remnants of inferior potential of an intellectu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nature. Those who design and plant life on an inhabited world are fully competent to advise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who have full and unquestioned authority to purge the evolving race of all detrimental influences.

55:4.12 (627.10) From the second stage on throughout

the career of a settled planet the Teacher Sons serve as counselors to the finaliters. During such missions they serve as volunteers and not by assignment; and they serve exclusively with the finaliter corps except that, upon the consent of the System Sovereign, they may be had as advisers to the Planetary Adam and Eve.

55:4.13 (628.1) 3. The third stage of light and life.

During this epoch the inhabited worlds arrive at a new appreci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the second phase of God the Sevenfold,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superuniverse rulers enter into new relationships with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55:4.14 (628.2) In each succeeding age of settled

existence the finaliters function in ever-increasing capacities. There exists a close working connection between the finaliters, the Evening Stars (the superangels), and the Trinity Teacher Sons.

55:4.15 (628.3) During this or the following age a

Teacher Son, assisted by the ministering-spirit quartette, becomes attached to the elective mortal chief executive, who now becomes associated with the Planetary Sovereign as joint administrator of world affairs. These mortal chief executives serve for twenty-five years of planetary time, and it is this new development that makes it easy for the Planetary Adam and Eve to secure release from their world of long-time assignment during the following ages.

55:4.16 (628.4) The ministering-spirit quartettes

consist of: the seraphic chief of the sphere, the

그리고 체계 본부에 머무는 배정된 파수자의 개인적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전(全)천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충고자들은 그것이 요청되지 않는 한 결코 조언을 제의하지 않는다.

4.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 세계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새로운 임무를 띠고 나타난다. 매우 오랫동안 그들의 계층과 연관된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보조를 받아, 그들은 이제 행성주권자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자발적인 조언자와 충고자들로서 세계들로 온다. 그러한 쌍-파라다이스-하보나-삼위일체화 아들들 그리고 상승자-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행성 통치자들에게 높게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우주 관점들과 다양한 개인적 체험들을 나타낸다.

이 시대 이후 언제든지 행성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기 위하여 행성 임무들로부터 풀려날 것을 주권자 창조자 아들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또는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2 품천사와 함께 쌍으로 협력하도록 이 세계들에게 현재 배정되어 있는, 찬란한 저녁별들에 의해 묘사된 최종자의 철학적 가르침들을 이해하려고 분투하는 진보된 필사자들로 구성된 점점 더 영적인 사회의 새롭게 출현하는 계층의 감독자들로서 행성에 남을 수 있다.

최종자는 주로 사회의 새로운 그리고 초(超)물질적인 활동들—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조화우주, 그리고 영적—을 시작하는 일에 참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 그들은 외부 공간에서 사명활동하기 위해 아마도 앞으로 나가게 될 진화적 안정성의 일곱 번째 신(新)시대 속으로 멀리 이 사명활동을 계속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자리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아(亞)절대적 존재들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추측한다.

5. 빛과 생명의 다섯 번째 단계. 정착된 실존의 이 단계의 재(再)조절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권역에 속하며 주(主)물리통제자들에게 1차 관계에 해당된다.

6. 빛과 생명의 여섯 번째 단계는 영역의 마음 순환회로들의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한다. 조화우주 지혜는 마음의 우주 사명활동의 요소가 된다.

7.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 일곱 번째 신(新)시대의 초기에 행성주권자의 삼위일체 교사 조언자가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보낸 자발적 충고자와 합쳐지고, 나중에 그들은 초우주 최극집행자로부터 보냄을 받는 세 번째 조언자에 의하여 증강될 것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新)시대 동안에 아담과 이브가 항상 행성 임무들로부터 풀려난다. 최종자 무리단에 물질아들이 존

superuniverse secoraphic counselor, the archangel of translations, and the omniaphim who functions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ssigned Sentinel stationed on the system headquarters. But these advisers never proffer counsel unless it is asked for.

55:4.17 (628.5) 4.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On the worlds the Trinity Teacher Sons appear in new roles. Assisted by the creature-trinitized sons so long associated with their order, they now come to the worlds as volunteer counselors and advisers to the Planetary Sovereign and his associates. Such couples — Paradise-Havona-trinitized sons and ascender-trinitized sons — represent differing universe viewpoints and diverse personal experiences which are highly serviceable to the planetary rulers.

55:4.18 (628.6) At any time after this age the Planetary Adam and Eve can petition the Sovereign Creator Son for release from planetary duties in order to begin their Paradise ascent; or they can remain on the planet as directors of the newly appearing order of increasingly spiritual society composed of advanced mortals striving to comprehend the philosophic teachings of the finaliters portrayed by the Brilliant Evening Stars, who are now assigned to these worlds to collaborate in pairs with the seconaphim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55:4.19 (628.7) The finaliters are chiefly engaged in initiating the new and supermaterial activities of society — social, cultur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As far as we can discern, they will continue this ministry far into the seventh epoch of evolutionary stability, when, possibly, they may go forth to minister in outer space; whereupon we conjecture their places may be taken by absonite beings from Paradise.

55:4.20 (628.8) 5. *The fifth stage of light and life.* The readjustments of this stage of settled existence pertain almost entirely to the physical domains and are of primary concern to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55:4.21 (628.9) 6. *The sixth stage of light and life* witnesses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s of the mind circuits of the realm. Cosmic wisdom seems to become constitutive in the universe ministry of mind.

55:4.22 (628.10) 7. *The seventh stage of light and life.* Early in the seventh epoch the Trinity Teacher counselor of the Planetary Sovereign is joined by a volunteer adviser sent by the Ancients of Days, and later on they will be augmented by a third counselor coming from th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55:4.23 (629.1) During this epoch, if not before, Adam and Eve are always relieved of planetary duties. If there is a Material Son in the finaliter corps, he

재한다면, 그는 필사자 집행자 우두머리와 연관하게 될 것이며, 언젠가 멜기세덱이 이 능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자원한다. 만일 중도자가 최종자 가운데 있다면, 행성에 남아 있는 계층 전체가 즉각 풀려난다.

그들의 긴 세월의 임무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순간, 행성 아담과 이브는 다음과 같은 생애들을 선택할 수 있다:

1. 그들은 행성 석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주 본부로부터 파라다이스 생애를 즉각 시작하게 되는데, 모론시아 체험이 완료될 때 생각 조절자들을 받는다.

2.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일정 기간의 행성 봉사를 자원해온 그들의 수입된 순수-계통 자녀들의 일부가 조절자들을 받게 됨과 동시에, 빛에 정착된 세계에서 아직 봉사하는 동안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우주 본부로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파라다이스 생애를 시작한다.

3.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 아(亞)중간 세계로 직접 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체계 본부로부터 물질아들들과 딸들이 하듯이—거기에서 그들의 조절자들을 받아들인다.

4. 그들은 체계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최고 법정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봉사 후에 그들은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한다.

5. 그들은 한동안 선생들로서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행정 임무들로부터 그들의 고향 세계로 되돌아가고 우주 본부로 옮겨질 때 조절자가 내주하게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신(新)시대들에 두루, 수입된 보조하는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진보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계층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인간화되고 조절자들을 받아들이며 파라다이스를 향해 출발하기로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는 잠재적으로 불멸이다.

진화 세계들의 경우, 존재는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인간화되어야만 한다. 최종자의 필사자 무리단의 모든 상승자 성원들은 조절자가 내주되고 융합한 것이다, 세라핌천사는 제외되며, 그들은 이 무리단 안으로 소집될 때, 다른 형태의 영에 의해 아버지가 내주된다.

may become associated with the mortal chief executive, and sometimes it is a Melchizedek who volunteers to function in this capacity. If a midwayer is among the finaliters, all of that order remaining on the planet are immediately released.

55:4.24 (629.2) Upon obtaining release from their agelong assignment, a Planetary Adam and Eve may select careers as follows:

55:4.25 (629.3) 1. They can secure planetary release and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start out immediately on the Paradise career, receiving Thought Adjusters at the conclusion of the morontia experience.

55:4.26 (629.4) 2. Very often a Planetary Adam and Eve will receive Adjusters while yet serving on a world settled in light concomitant with the receiving of Adjusters by some of their imported pure-line children who have volunteered for a term of planetary service. Subsequently they may all go to universe headquarters and there begin the Paradise career.

55:4.27 (629.5) 3. A Planetary Adam and Eve may elect — as do Material Sons and Daughters from the system capital — to go direct to the midsonite world for a brief sojourn, there to receive their Adjusters.

55:4.28 (629.6) 4. They may decide to return to the system headquarters, there for a time to occupy seats on the supreme court, after which service they will receive Adjusters and begin the Paradise ascent.

55:4.29 (629.7) 5. They may choose to go from their administrative duties back to their native world to serve as teachers for a season and to become Adjuster indwelt at the time of transfer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55:4.30 (629.8) Throughout all of these epochs the imported assisting Material Sons and Daughters exert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progressing social and economic orders. They are potentially immortal, at least until such time as they elect to humanize, receive Adjusters, and start for Paradise.

55:4.31 (629.9) On the evolutionary worlds a being must humanize to receive a Thought Adjuster. All ascendant members of the Mortal Corps of Finaliters have been Adjuster indwelt and fused except seraphim, and they are Father indwelt by another type of spirit at the time of being mustered into this corps.

제 5 장. 물질적 발달의 절정

5. THE ACME OF MATERIAL DEVELOPMENT

유란시아와 같이, 죄에-휩쓸리고 악에-지배당

55:5.1 (629.10) Mortal creatures living on a sin-

하고 자아를 추구하고 있고,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필사 창조체들은 죄 없는 구체의 진보된 이 진화 신(新)시대들의 특징인 물리적 완전과 지적 달성 그리고 영적 발전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의 진보된 단계들은 진화적인 물질적 발달의 절정을 나타낸다. 교화된 이 세계들에서는, 비교적 초기의 원시적 시대들의 게으름과 충돌이 이미 사라졌다.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이 모두 사라졌고, 퇴화가 없어졌으며, 범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신병이 실존적으로 사라졌고, 정신박약은 아주 드물다.

이 세계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행정-관리적 지위는 높고 완전하게 된 계층에 속한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산업이 번창하고, 사회는 높은 물질적, 지적, 그리고 문화적 성취의 부드럽게 작동하는 일종의 기능구조이다. 산업은 그러한 뛰어난 문명의 보다 높은 목표들을 돕는 쪽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그러한 세계의 경제생활은 윤리적인 상태가 되었다.

전쟁은 역사에서의 문제가 되었으며, 더 이상 군대나 경찰이 없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자아-통제가 인간적 규제 법규를 서서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시민 정부와 법정 규칙의 범위는, 진보하는 문명의 중간 상태에서는, 시민관계의 도덕성 그리고 영성에 반비례한다.

학교들이 크게 개선되고 마음 훈련과 혼의 확대에 기여한다. 예술 중심들은 멋지고 음악적 조직체들은 뛰어나다. 경배를 드리는 성전들은 그것들과 연관된 철학 그리고 체험적 종교 학교들과 함께 아름다움과 장엄함의 창조계이다. 경배의 야외 경기장들은 그것들의 예술적 설비의 단순성 속에서 똑같이 장엄하다.

경쟁적인 연극, 유머, 그리고 다른 국면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성취를 위한 설비들은 넓고도 특유하다. 높게 문화화 된 그러한 세계에서 경쟁적인 활동들의 특별한 특색은 우주론의 과학들과 철학들에서 탁월하기 위해 개별존재들 그리고 집단들의 노력에 관여한다. 문학과 웅변술 그리고 언어는 개념들에 대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개념들에 대한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이 개선된다. 삶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사람은 마침내 기계적 발달의 높은 상태와 영감을 주는 지적 달성을 조화-협동시키며, 그리고는 이들 둘 모두를 절묘한 영적 성취가 그들이 되도록 만든다. 행복의 추구는 기쁨과 만족의 체험이다.

stricken, evil-dominated, self-seeking, isolated world, such as Urantia, can hardly conceive of the physical perfection, the intellectual attainment, and the spiritual development which characterize these advanced epochs of evolution on a sinless sphere.

55:5.2 (629.11) The advanced stages of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represent the acme of evolutionary material development. On these cultured worlds, gone are the idleness and friction of the earlier primitive ages.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have all but vanished, degeneracy has disappeared, and delinquency is rarely observed. Insanity has practically ceased to exist, and feeble-mindedness is a rarity.

55:5.3 (629.12) The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status of these worlds is of a high and perfected order. Science, art, and industry flourish, and society is a smoothly working mechanism of high material, intellectual, and cultural achievement. Industry has been largely diverted to serving the higher aims of such a superb civilization. The economic life of such a world has become ethical.

55:5.4 (630.1) War has become a matter of history, and there are no more armies or police forces. Government is gradually disappearing. Self-control is slowly rendering laws of human enactment obsolete. The extent of civil government and statutory regulation, in an intermediate state of advancing civilization,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morality and spirituality of the citizenship.

55:5.5 (630.2) Schools are vastly improved and are devoted to the training of mind and the expansion of soul. The art centers are exquisite and the musical organizations superb. The temples of worship with their associated schools of philosophy and experiential religion are creations of beauty and grandeur. The open-air arenas of worship assembly are equally sublime in the simplicity of their artistic appointment.

55:5.6 (630.3) The provisions for competitive play, humor, and other phases of personal and group achievement are ample and appropriate. A special feature of the competitive activities on such a highly cultured world concerns the efforts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excel in the sciences and philosophies of cosmology. Literature and oratory flourish, and language is so improved as to be symbolic of concepts as well as to be expressive of ideas. Life is refreshingly simple; man has at last co-ordinated a high state of mechanical development with an inspiring intellectual attainment and has overshadowed both with an exquisite spiritual achievement. The pursuit of happiness is an experience of joy and satisfaction.

제 6 장. 개별 필사자

6. THE INDIVIDUAL MORTAL

세계들이 빛과 생명의 정착된 지위 속에서 진보할 때, 사회는 점점 더 평화롭게 된다. 독립하고 자기 가정에게 헌신하는 만큼, 개별존재는 더욱 이타적이고 형제우애를 갖게 된다.

유란시아의 경우, 그리고 너희 있는 그대로에서는, 너희는 이들 완전 세계에서의 깨우친 종족들의 발전된 지위와 진보하는 본성에 대해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들 민족들은 진화적 종족들이 꽃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은 여전히 필사자이다; 계속 숨 쉬고 먹고 자며 마신다. 이 위대한 진화가 천국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 상승의 신성한 세계들에 대한 장엄한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필사 종족의 생물학적 건강은 아담의-이후 신(新)시대들 동안에, 높은 차원에 이른지 오래 된다; 이제는 여러 시대의 정착된 시기를 지나며 두루, 사람의 육신적 진화가 계속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확장된다. 이제는 인구가 고정된 숫자로 안정되게 된다. 출산은 행성 요구와 타고난 유전 자질에 따라 규제 된다; 이 시기 동안 행성에 있는 필사자들은 다섯 개 내지 열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낮은 집단들은 비교적 높은 집단 보다 절반 정도의 자녀들만을 두도록 허용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에 두루 그러한 훌륭한 종족의 계속적인 개선은 주로 사회적, 철학적, 우주적, 그리고 영적 본성의 우월한 본질특성을 드러내 보이는 인종 혈통들의 선택적인 번식의 문제이다.

조절자들은 이전 진화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오며, 신(新)시대들이 지남에 따라 이 필사자들은 내주 하는 아버지 단편과 점점 더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태아기 그리고 영-이전(以前) 상태의 발달이 있는 동안 보조 마음-영들이 여전히 활동한다. 성령과 천사들의 사명활동은 정착된 생명의 계속되는 신(新)시대들이 체험됨에 따라 더욱 효력을 나타낸다. 빛과 생명의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진보된 필사자들은 초우주가 관할하는 주(主) 영의 영 현존과의 상당히 큰 의식적 접촉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러한 어떤 세계의 철학은 최극위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진보된 지위의 행성들에 거주하는 인간들 중 반 이상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한다. 과연 그리하니, “옛 것들은 지나가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우리는 빛-과-생명 시대의 다섯 번째 신(新)시대가 끝날 무렵에 물리적 진화가 충만한 발달을 달성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과 연관된 영적 발달의 상위 한계들이 모론시아 가치들과 조화우주 의미들이 공동을 이루는 조절자-융합 차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나 지혜에 관하여는: 우리가 실제적으

55:6.1 (630.4) As worlds advance in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peaceful. The individual, while no less independent and devoted to his family, has become more altruistic and fraternal.

55:6.2 (630.5) On Urantia, and as you are, you can have little appreciation of the advanced status and progressive nature of the enlightened races of these perfected worlds. These people are the flowering of the evolutionary races. But such beings are still mortal; they continue to breathe, eat, sleep, and drink. This great evolution is not heaven, but it is a sublime foreshadowing of the divine worlds of the Paradise ascent.

55:6.3 (630.6) On a normal world the biologic fitness of the mortal race was long since brought up to a high level during the post-Adamic epochs; and now, from age to age throughout the settled eras the physical evolution of man continues. Both vision and hearing are extended. By now the population has become stationary in numbers. Reproduct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planetary requirements and innate hereditary endowments: The mortals on a planet during this age are divided into from five to ten groups, and the lower groups are permitted to produce only one half as many children as the higher.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such a magnificent race throughout the era of light and life is largely a matter of the selective reproduction of those racial strains which exhibit superior qualities of a social, philosophic, cosmic, and spiritual nature.

55:6.4 (630.7) The Adjusters continue to come as in former evolutionary eras, and as the epochs pass, these mortals are increasingly able to commune with the indwelling Father fragment. During the embryonic and prespiritual stages of development the adjutant mind-spirits are still functioning. The Holy Spirit and the ministry of angels are even more effective as the successive epochs of settled life are experienced. In the fourth stage of light and life the advanced mortals seem to experience considerable conscious contact with the spirit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while the philosophy of such a world is focused upon the attempt to comprehend the new revelations of God the Supreme. More than one half of the human inhabitants on planets of this advanced status experience translation to the morontia state from among the living. Even so, “old things are passing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ing new.”

55:6.5 (631.1) We conceive that physical evolution will have attained its full development by the end of the fifth epoch of the light-and-life era. We observe that the upper limits of spiritual development associated with evolving human mind are determined by the Adjuster-fusion level of conjoint morontia values and cosmic meanings. But

로 알지 못하는 반면, 지적 진화와 지혜의 달성에 한계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추측한다. 일곱 번째 단계 세계의 경우, 지혜는 물질적 잠재를 다 나타낼 수 있고, 모타 통찰력으로 들어가며, 결국에는 아(亞)절대적 장관을 맞본다.

우리는 높게 진화되고 긴 일곱 번째 단계 세계들에서 인간 존재들이 전환되기 전에 지역우주 언어를 완전히 배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반돈터들이 오래된 필사자들에게 초우주의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소수의 매우 오래된 행성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세계들에서 나는 아(亞)절대 개인성들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최종자의 현존을 제시하는 기법을 관찰한바 있다.

이것은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필사자 본투의 장엄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 존재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관한 것이다; 화려한 이 발전 전체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 파라다이스 상승과 신성 달성의 끝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생애의 바로 첫 단계에 물질적 필사자들에 의해 성취된다.

그러나 너희가 정착된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신(新)시대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세계들로부터 지금 어떤 종류의 진화적 필사자들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상승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지역우주 본부에서의 모론시아 세계들에게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과 같다.

만약에 혼란된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이 오랫동안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보다 더 진보된 이 세계들 중 하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창조의 진화 계획의 지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창조체 진보의 미래가 없더라도, 완전하게 된 성취의 그러한 정착된 세계에 있는 필사 종족들의 장엄한 진화적 달성들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있는 사람의 창조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대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된다면, 상승하는 아름다운 필사자들이 여전히 최종의 무리단으로 들어가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concerning wisdom: While we do not really know, we conjecture that there can never be a limit to intellectual evolution and the attainment of wisdom. On a seventh-stage world, wisdom can exhaust the material potentials, enter upon mota insight, and eventually even taste of absonite grandeur.

55:6.6 (631.2) We observe that on these highly evolved and long seventh-stage worlds human beings fully learn the local universe language before they are translated; and I have visited a few very old planets where abandoners were teaching the older mortals the tongue of the superuniverse. And on these worlds I have observed the technique whereby the absonite personalities reveal the presence of the finalizers in the morontia temple.

55:6.7 (631.3) This is the story of the magnificent goal of mortal striving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it all takes place even before human beings enter upon their morontia careers; all of this splendid development is attainable by material mortals on the inhabited worlds, the very first stage of that endless and incomprehensible career of Paradise ascension and divinity attainment.

55:6.8 (631.4) But can you possibly imagine what sort of evolutionary mortals are now coming up from worlds long existing in the seventh epoch of settled light and life? It is such as these who go on to the morontia worlds of the local universe capital to begin their ascension careers.

55:6.9 (631.5) If the mortals of distraught Urantia could only view one of these more advanced world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y would nevermore question the wisdom of the evolutionary scheme of creation. Were there no future of eternal creature progression, still the superb evolutionary attainments of the mortal races on such settled worlds of perfected achievement would amply justify man's creation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55:6.10 (631.6) We often ponder: If the grand universe should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would the ascending exquisite mortals still be destined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But we do not know.

제 7 장. 첫 번째, 즉 행성 단계

이 신(新)시대는 새로운 행성 본부에 모론시아 성전이 나타나는 때로부터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대는 구체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명령과 개인적 현존에 의해, 행성영주가 행성주권자의 지위로 고양되는, 그들의 계속되는 세계 임무들이 종료되는 때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최종자는 행성 관련사들에 대한 그들의 활동적 참여를 시작한다.

7. THE FIRST OR PLANETARY STAGE

55:7.1 (631.7) This epoch extends from the appearance of the morontia temple at the new planetary headquarters to the time of the settling of the entire system in light and life. This age is inaugurated by the Trinity Teacher Sons at the close of their successive world missions when the Planetary Prince is elevated to the status of Planetary Sovereign by the mandate and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at

외부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그러한 어떤 세계의 실제적 통치자들 또는 감독자들은 물질아들과 딸, 행성 아담과 이브이다. 최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론시아 성전에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주권자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행성 체제의 실제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우두머리는 물질아들과 딸이다. 우주 영역에 두루 왕들과 왕비들의 개념이 위신을 얻게된 것은 이러한 배열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왕들과 왕비들은 한 세계가 어떤 높은 개인성들에게 더 높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때, 이들 이상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하나의 위대한 성공이다.

그러한 시대가 너희 세계에서 달성되면,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인 마키벤타 멜기세택이 행성주권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놀라시아택의 지고자의 피보호자로서 현재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한 아들과 딸이 그와 동반하리라는 것이 예루셈에서 오랫동안 추측되어 왔다. 아담의 이 자녀들은 거의 37,000년 전에 그들이 에덴시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서 유란시아에서의 자신들의 물질적 몸체를 포기하였을 당시 출산하는 힘을 박탈 당하였기 때문에, 멜기세택-주권자와 관계적-연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그런 어떤 봉사를 할지도 모른다.

정착된 이 시기는 체계 안에 있는 각각의 거주 행성이 안정의 시대를 성취할 때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가장 어린 세계—마지막으로 빛과 생명을 성취한 세계—가 체계 시간으로 1,000년 동안 그러한 정착됨을 체험하였을 때, 전체 체계는 안정된 지위로 들어가며, 개별 세계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의 체계 신(新)기원으로 정중하게 진입된다.

제 8 장. 두 번째, 즉 체계 단계

전체 체계가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새로운 계층의 정부가 출범된다. 행성주권자들은 체계 비밀회의의 회원이 되며, 별자리 아버지들의 거부권에 복종하는 이 새로운 행정-관리적 기구가 최극의 권한을 갖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 구성된 그러한 체계는 실질적으로 자아-관리하는 곳이 된다. 체계 입법 회의는 본부 세계에 설립되며, 각 행성은 그곳으로 열 명의 대표자들을 보낸다. 법정들이 현재 체계 본부에 설립되어 있으며, 오직 항소들만이 우주 본부에 받아들여진다.

체계의 정착에 따라, 초우주 최극 집행자의

sphere. Concomitant therewith the finaliters inaugurat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planetary affairs.

55:7.2 (632.1) To outward and visible appearances the actual rulers, or directors, of such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e Planetary Adam and Eve. The finaliters are invisible, as also is the Prince-Sovereign except when in the morontia temple. The actual and literal heads of the planetary regime are therefo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It is the knowledge of these arrangements that has given prestige to the idea of kings and queens throughout the universe realms. And kings and queens are a great success under these ideal circumstances, when a world can command such high personalities to act in behalf of still higher but invisible rulers.

55:7.3 (632.2) When such an era is attained on your world, no doubt Machiventa Melchizedek, now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occupy the seat of the Planetary Sovereign; and it has long been conjectured on Jerusem that he will be accompanied by a son and daughter of the Urantia Adam and Eve who are now held on Edentia as wards of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These children of Adam might so serve on Urantia in association with the Melchizedek-Sovereign since they were deprived of procreative powers almost 37,000 years ago at the time they gave up their material bodies on Urantia in preparation for transit to Edentia.

55:7.4 (632.3) This settled age continues on and on until every inhabited planet in the system attains the era of stabilization; and then, when the youngest world — the last to achieve light and life — has experienced such settledness for one millennium of system time, the entire system enters the stabilized status, and the individual worlds are ushered into the system epoch of the era of light and life.

8. THE SECOND OR SYSTEM STAGE

55:8.1 (632.4) When an entire system becomes settled in life, a new order of government is inaugurated. The Planetary Sovereigns become members of the system conclave, and this new administrative body, subject to the veto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is supreme in authority. Such a system of inhabited worlds becomes virtually self-governing. The system legislative assembly is constituted on the headquarters world, and each planet sends its ten representatives thereto. Courts are now established on the system capitals, and only appeals are taken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55:8.2 (632.5) With the settling of the system the

대표자인 배정된 파수자는 체계 대법정에 자원하는 충고자가 되고 새로운 입법 회의의 실제적인 의장이 된다.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후에는, 체계 주권자들이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자기 체계의 우두머리로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체계 보좌관들이 이전 시대들에서와 같이 계속 변한다.

안정의 이 신(新)시대 동안, 처음으로 아(亞) 중간자들이 입법 회의들에 대해 조언자들로서 그리고 판결 법정에 대해 충고자들로서 활동하기 위해, 그들이 머무는 우주 본부 세계들로부터 온다. 또한 이들 아(亞)중간자들은 그들이 최종자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르치는 사업에, 최극 가치의 새로운 모타 의미들을 불어넣으려는 특정한 노력을 기울인다. 물질아들들이 필사 종족들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행하였던 것을, 아(亞)중간 창조체들은 계속-발전하는 철학 그리고 영성화된 사고(思考)의 영역 안에서, 통합되고 영화롭게 된 이들 인간을 위해 이제 행한다.

거주되는 세계들의 경우 교사 아들들은 최종자와 함께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들이 되며, 또한 동일한 이 교사 아들들은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후에 구체들이 구별이 되는 접수 세계들로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때, 맨션세계까지 최종자와 동행 한다; 전체 별자리가 그렇게 진화하는 때가 되어서는 적어도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나 네바돈 안에서 그렇게 멀리 진보한 집단들이 없다.

우리는 다시 전념된 그러한 맨션세계들을 감독하게 될 최종자의 활동의 본질을 계시하도록 허락 받지 않았다. 아무튼 너희에게는 이 이야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우주들에 두루 다양한 형태의 지능 창조체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온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체계들이 그들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진보의 덕분으로 빛 속에 하나씩 정착하게 될 때, 주어진 별자리 안에서 마지막 체계가 안정을 달성하는 시간이 도래하며, 우주 행정-관리자들—주(主) 아들, 연합으로 늘 계신이,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 지고자들을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정착된 100개 체계로서의 새롭게 완전해진 가족의 분별불가적 통치자들로 선포하기 위하여 별자리의 본부에 도착한다.

제 9 장. 세 번째, 즉 별자리 단계

정착된 체계들로 이루어진 전체 별자리의 통일은 집행적 권한의 새로운 배분과 우주 관리-행정의 추가적 재(再)조절들에 의해 성취된다. 이 신(新)시대에 거주민이 사는 각 세계에서 증진된 달

Assigned Sentinel, representative of the superuniverse Supreme Executive, becomes the volunteer adviser to the system supreme court and actual presiding officer of the new legislative assembly.

55:8.3 (632.6) After the settling of an entire system in light and life the System Sovereigns will no more come and go. Such a sovereign remains perpetually at the head of his system. The assistant sovereigns continue to change as in former ages.

55:8.4 (632.7) During this epoch of stabilization, for the first time midsoniters come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of their sojourn to act as counselors to the legislative assemblies and advisers to the adjudicational tribunals. These midsoniters also carry on certain efforts to inculcate new mota meanings of supreme value into the teaching enterprises which they sponsor jointly with the finaliters. What the Material Sons did for the mortal races biologically, the midsonite creatures now do for these unified and glorified humans in the ever-advancing realms of philosophy and spiritualized thinking.

55:8.5 (633.1) On the inhabited worlds the Teacher Sons become voluntary collaborators with the finaliters, and these same Teacher Sons also accompany the finaliters to the mansion worlds when those spheres are no longer to be utilized as differential receiving worlds after an entire system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at least this is true by the time the entire constellation has thus evolved. But there are no groups that far advanced in Nebadon.

55:8.6 (633.2) We are not permitted to reveal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finaliters who will supervise such rededicated mansion worlds. You have, however, been informed that there are throughout the universes various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who have not been portrayed in these narratives.

55:8.7 (633.3) And now, as the systems one by one become settled in light by virtue of the progress of their component worlds, the time comes when the last system in a given constellation attains stabilization, and the universe administrators — the Master Son, the Union of Days,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 arrive on the capital of the constellation to proclaim the Most Highs the unqualified rulers of the newly perfected family of one hundred settled systems of inhabited worlds.

9. THE THIRD OR CONSTELLATION STAGE

55:9.1 (633.4) The unification of a whole constellation of settled systems is attended by new distributions of executive authority and additional readjustments of universe administration. This epoch witnesses

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만 특별한 특징은 별자리 본부에서 재(再)조절이 일어나는 것인데, 체계 감독과 지역우주 정부 둘 모두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변경된다. 이 시기 동안 많은 별자리 그리고 우주 활동들이 체계 본부로 전달되며, 초우주의 대표자들은 행정 통치자들과 체계 통치자들 그리고 우주 통치자들과의 새롭고도 더욱 긴밀한 관계들을 갖게 된다. 이 새로운 관계적-연합들과 동시에, 어떤 초우주 관리-행정자들은 지고자 아버지들에 대해 자발적 충고자로서 별자리 본부에 자리를 잡는다.

별자리가 그렇게 빛 속에 정착할 때, 입법 기능이 멈추고, 지고자들에 의해 주관되는 체계 주권자들의 의회가 대신 활동한다. 이제 그러한 관리-행정적 집단들은 하보나 그리고 파라다이스 관계들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처음으로 초우주 정부와 직접적으로 처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자리가 그 전과 같이 지역우주와의 관계에 머문다. 생명 속에 정착된 각 단계들에서 유니비타시아가 별자리 모론시아 세계들을 계속 관리-운영한다.

시대들이 지나감에 따라, 별자리 아버지들이 세부 행정-관리적 또는 그 전에 우주 본부에 중심을 두었던 감독기능들을 점점 더 많이 맡게 된다. 안정의 여섯 번째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통합된 이 별자리들은 거의 완벽한 자치권의 지위를 갖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정착하는 일곱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고자,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참된 존엄성으로 이들 통치자들에 의하여 고양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모든 의향과 목적들에 대하여 별자리들은 그때 초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관계하는 반면, 지역우주 정부는 새로운 대우주 의무의 책임들을 더 광범위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제 10 장. 네 번째, 즉 지역우주 단계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그것은 확립된 초우주 순환회로들 속으로 곧 회전해 들어가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는 무제한적 권한을 가진 최고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한다. 새로운 이 통치 기구는 100명의 충심으로 늘 계신이로 구성되고,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통치되며, 이 최고협의회의 첫 번째 활동은 주 창조자 아들의 계속적인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주 관리-행정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을 고려하는 한, 전혀 변하지 않는다. 무제한적 권한을 갖는 이 협의회는 빛과 생명의 진보된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조건들에 주로 관여한다.

advanced attainment on every inhabited world but is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readjustment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ith marked modification of relationships with both the system supervision and the local universe government. During this age many constellation and universe activities are transferred to the system capital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eruniverse assume new and more intimate relations with the planetary, system, and universe rulers. Concomitant with these new associations, certain superuniverse administrators establish themselves on the constellation capitals as volunteer advisers to the Most High Fathers.

55:9.2 (633.5) When a constellation is thus settled in light, the legislative function ceases, and the house of System Sovereigns, presided over by the Most Highs, functions instead. Now, for the first time, such administrative groups deal directly with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in matters pertaining to Havona and Paradise relationships. Otherwise the constellation remains related to the local universe as before. From stage to stage in the settled life the univatatia continue to administer the constellation morontia worlds.

55:9.3 (633.6) As the ages pass, the Constellation Fathers take over more and more of the detailed administrative or supervising functions which were formerly centered on the universe headquarters. By the attainment of the sixth stage of stabilization these unified constellations will have reached the position of well-nigh complete autonomy. Entrance upon the seventh stage of settledness will no doubt witness the exaltation of these rulers to the true dignity signified by their names, the Most High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constellations will then deal directly with the superuniverse rulers, while the local universe government will expand to grasp the responsibilities of new grand universe obligations.

10. THE FOURTH OR LOCAL UNIVERSE STAGE

55:10.1 (634.1) When a universe becomes settled in light and life, it soon swings into the established superuniverse circuits, and the Ancients of Days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This new governing body consists of the one hundred Faithfuls of Days, presided over by the Union of Days, and the first act of this supreme council is to acknowledge the continued sovereignty of the Master Creator Son.

55:10.2 (634.2) The universe administration, as far as concerns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is quite unchanged. This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is chiefly concerned with the new problems and the new conditions arising out of the

이때 연관-동료 검열자가 지역우주의 안정 무리단을 설립하기 위해 모든 배정된 파수자들을 동원하며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그것에 대한 감독을 자신과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이 때, 처음으로,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무리단이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봉사에 배정된다.

전체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일은, 거주민이 사는 개별 세계들로부터 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전체 관리-행정 조직 안에 심원한 재(再)조절들을 일으킨다. 새로운 관계들이 별자리들과 체계들을 향하여 아래로 확장된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은 초우주의 주(主) 영과 새로운 연락 관계들을 체험하며, 가브리엘은 주(主) 아들이 본부 세계에서 부재(不在)하게 될 경우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수립한다.

이 시대와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치안법관 아들들이 섭리시대 심판관들로서 계속 활동하는 반면, 파라다이스의 이들 아보날 아들 중 100명은 빛나는 새벽별의 새로운 고급 협의회를 우주 수도에서 구성한다. 나중에, 그리고 체계 주권자들로부터 요청될 때, 이 치안법관 아들들 중 하나가 각 지역체계의 본부 세계에 일곱 번째 합일 단계가 달성될 때까지 머무는 최고 조언자가 될 것이다.

이 신(新)시대 동안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주권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슷하게 별자리 아버지들을 돕는 세 집단에 있어서도, 자발적 충고자들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들은 지역 우주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데, 왜냐하면 이 때 그들이 지역 창조에 대한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되고 무제한적 권한을 갖는 최고협의회의 봉사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최종자 무리단은 이제 처음으로 추가-파라다이스 권한의 관할권, 최고협의회를 시인한다. 이전까지는 최종자가 파라다이스의 이 방면에 대한 감독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정착된 그러한 우주들의 창조자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세계들에서 그리고 지역 창조에 두루 봉사하는 수많은 최종자 집단과 조언하는 일에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 방법으로 미가엘의 사람은 영화롭게 된 최종자 필사자들과 관계적-연합하는 더욱 충만한 형제우애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예비적 조립의 과정에 있는 외계 우주와 관련된 이 창조자 아들들의 기능에 관하여 추측하는 것은 전혀 쓸 데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때때로 그러한 가정을 세워보곤 한다. 이 네 번째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서 창조자 아들은 행정-관리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신성한 사명활동자가 초우주 주(主) 영과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과 자신

advanced status of light and life.

55:10.3 (634.3) The Associate Inspector now mobilizes all Assigned Sentinels to constitute the *stabilization corps of the local universe* and asks the Father Melchizedek to share its supervision with him. And now, for the first time, a corps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Union of Days.

55:10.4 (634.4) The settling of an entire local universe in light and life inaugurates profound readjustments in the entire scheme of administration, from the individual inhabited worlds to the universe headquarters. New relationships extend down to the constellations and systems.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experiences new liaison relations with the Master Spirit of the superuniverse, and Gabriel establishes direct contact with the Ancients of Days to be effective when and as the Master Son may be absent from the headquarters world.

55:10.5 (634.5) During this and subsequent ages the Magisterial Sons continue to function as dispensational adjudicators, while one hundred of these Avonal Sons of Paradise constitute the new high council of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n the universe capital. Later on, and as requested by the System Sovereigns, one of these Magisterial Sons will become the supreme counselor statione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each local system until the seventh stage of unity is attained.

55:10.6 (634.6) During this epoch the Trinity Teacher Sons are volunteer advisers, not only to the Planetary Sovereigns, but in groups of three they similarly serve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at last these Sons find their place in the local universe, for at this time they are remov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creation and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supreme council of unlimited authority.

55:10.7 (634.7) The finaliter corps now, for the first time,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an extra-Paradise authority, the supreme council. Heretofore the finaliters have recognized no supervision this side of Paradise.

55:10.8 (634.8) The Creator Sons of such settled universes spend much of their time on Paradise and its associated worlds and in counseling the numerous finaliter groups serving throughout the local creation. In this way the man of Michael will find a fuller fraternity of association with the glorified finaliter mortals.

55:10.9 (634.9) Speculation concerning the function of these Creator Sons in connection with the outer universes now in process of preliminary assembly is wholly futile. But we all engage in such postulations from time to time. On attaining this fourth stage of development the Creator Son becomes administratively free; the Divine Minister

의 것을 점진적으로 혼합시킨다. 창조자 아들, 창조 영, 저녁별들, 교사 아들들, 그리고 계속-증가하는 최종자 무리 사이의 새롭고도 장엄한 관계가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미가엘이 네바돈을 계속 떠나야만 한다면, 가브리엘이 자신의 연관-동료로서 아버지 멜기세덱과 함께 우두머리 관리-행정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동시에 새로운 지위가 모든 계층의 영구 시민신분들에게 수여될 것인데, 물질아들들, 유니비타시아, 아(亞)중간자, 수사시아, 그리고 영-융합 필사자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진화가 계속되는 한, 세라핌천사들과 천사장들은 우주 관리-행정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추측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만족하는데: 만약에 창조자 아들들이 외계 우주들에게로 갈 운명이려면, 분명히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기원된 우주에 멜기세덱들이 남아 있을 것에 대해 똑같이 확신한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지역우주 정부 그리고 관리-행정에 있어서 계속-증가하는 책임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제 11 장.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 단계들

초우주의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들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존재에 관한 계획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진화적 진보는 한 단위로서 지역우주에 우선적으로 속하며한 지역우주의 요소들과만 관계한다.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것은 그 구성원 지역우주들 전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일곱 초우주들 중 어느 하나도 이것에 근접하는 진보의 차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소구역 시대. 관측이 가능한 한, 안정의 다섯 번째 또는 소구역 단계는 물리적 지위와 전적으로 관계하며 그리고 초우주의 확립된 순환회로들 속에서 연관된 100개 지역우주들의 조화-협동 정착에만 전적으로 관계한다. 겉으로 보기에 오직 힘 중심지들만이 그리고 그것들의 동료들만이 물질적 창조의 이 재(再)정돈에 관계한다.

대구역 시대. 여섯 번째 단계, 또는 대구역 안정에 관하여,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러한 사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과 그것들의 우주 집단화의 그러한 진보된 지위에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행정-관리적 그리고 다른 재(再)조절들에 관한 많은 것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소구역 지위가 물리적 조화-협동 평형과 관련

is progressively blending her ministry with that of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 and the Infinite Spirit. There seems to be evolving a new and sublim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 Son, the Creative Spirit, the Evening Stars, the Teacher Sons, and the ever-increasing finaliter corps.

55:10.10 (635.1) If Michael should ever leave Nebadon, Gabriel would undoubtedly become chief administrator with the Father Melchizedek as his associate. At the same time new status would be imparted to all orders of permanent citizenship, such as Material Sons, univiatia, midsoniters, susatia, and Spirit-fused mortals. But as long as evolution continues, the seraphim and the archangels will be required in universe administration.

55:10.11 (635.2) We are, however, satisfied regarding two features of our speculations: If the Creator Sons are destined to the outer universes, the Divine Ministers will undoubtedly accompany them. We are equally sure that the Melchizedeks are to remain with the universes of their origin. We hold that the Melchizedeks are destined to play ever-increasingly responsible parts in local univers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11. THE MINOR AND MAJOR SECTOR STAGES

55:11.1 (635.3)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do not figure directly in the plan of being settled in light and life. Such an evolutionary progression pertains primarily to the local universe as a unit and concerns only the components of a local universe. A superuniverse is settled in light and life when all of its component local universes are thus perfected. But not one of the seven superuniverses has attained a level of progression even approaching this.

55:11.2 (635.4) *The minor sector age.* As far as observations can penetrate, the fifth or minor sector stage of stabilization has exclusively to do with physical status and with the co-ordinate settling of the one hundred associated local universes in the established circuits of the superuniverse. Apparently none but the power centers and their associates are concerned in these realignments of the material creation.

55:11.3 (635.5) *The major sector age.* Concerning the sixth stage, or major sector stabilization, we can only conjecture since none of us have witnessed such an event. Nevertheless, we can postulate much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nd other readjustments which would probably accompany such an advanced status of inhabited worlds and their universe groupings.

55:11.4 (635.6) Since the minor sector status has to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역 통일이 어떤 새로운 지적 달성 차원들, 아마도 조화우주 지혜의 최극 실현에 있어서 진보된 어떤 성취들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개별적인 세계들에서 그리고 비교적 오래되고 높게 발달된 구체들에서 사는 개별 필사자들의 체험들에 있어서 그러한 성취 결과들을 바라봄으로써 진화적 진보의 지금까지 달성되지 않은 차원들에 대한 실현을 성취하게 될 재(再)조절들에 관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분명하게 할 것은, 우주 또는 초우주의 행정-관리적 기능구조와 정부 기능구조들은 거주민이 사는 개별 행성이나 그러한 어떤 구체에 있는 모든 개별 필사자의 진화적 발달 또는 영적 진보를 전혀 제한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교적 오래된 어떤 우주들에서 우리는 아직 지역체계들이 빛 속에 정착하지 않은, 그러한 빛과 생명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 안에—심지어 일곱 번째 신(新)시대 안으로 멀리 확장되기까지—정착된 세계들을 발견하였다. 비교적 젊은 행성들은 체계 통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다 오래되고 진보한 세계의 진보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립된 세계에서조차도 환경적 한계들이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 달성을 꾀방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유란시아에서 1,900년 전에 빛과 생명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성취하였다.

일곱 초우주가 안정되는 사건을 우리가 안전하게 가정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의 초우주 전체가 빛 속에 정착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오랜 세월 정착된 세계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관측하였기 때문이다.

제 12 장. 일곱 번째, 즉 초우주 단계

우리는 초우주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될 때 무엇이 발생할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 사실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모순된 적이 전혀 없는, 멜기세덱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로부터 초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의 모든 단위에 대한 전체 조직과 관리-행정 속에서 포괄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르게 배정되지 않은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 중 많은 숫자들이 정착된 초우주들의 본부 그리고 구획 수도들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는다. 이것은 외계-공간자가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하는 그들의 길에 언젠가 도달하

do with co-ordinate physical equilibrium, we infer that major sector unification will be concerned with certain new intellectual levels of attainment, possibly some advanced achievements in the supreme realization of cosmic wisdom.

55:11.5 (635.7) We arrive at conclusions regarding the readjustments which would probably attend the realization of hitherto unattained levels of evolutionary progress by observing the results of such achievements on the individual worlds and in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 mortals living on these older and highly developed spheres.

55:11.6 (635.8) Let it be made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mechanisms and governmental techniques of a universe or a superuniverse cannot in any manner limit or retard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r spiritual progress of an individual inhabited planet or of any individual mortal on such a sphere.

55:11.7 (635.9) In some of the older universes we find worlds settled in the fifth and the sixth stages of light and life — even far extended into the seventh epoch — whose local systems are not yet settled in light. Younger planets may delay system unification, but this does not in the least handicap the progress of an older and advanced world. Neither can environmental limitations, even on an isolated world, thwart the personal attainment of the individual mortal; Jesus of Nazareth, as a man among men, personally achieved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over nineteen hundred years ago on Urantia.

55:11.8 (636.1) It is by observing what takes place on long-settled worlds that we arrive at fairly reliable conclusions as to what will happen when a whole superuniverse is settled in light, even if we cannot safely postulate the event of the stabil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2. THE SEVENTH OR SUPERUNIVERSE STAGE

55:12.1 (636.2) We cannot positively forecast what would occur when a superuniverse became settled in light because such an event has never factalized. From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s, which have never been contradicted, we infer that sweeping changes would be made in the entir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every unit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extending from the inhabited worlds to the superuniverse headquarters.

55:12.2 (636.3)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large numbers of the otherwise unattached creature-trinitized sons are to be assembled on the headquarters and divisional capitals of the settled superuniverses. This may be in anticipation of the

는 것을 예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리고 초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조연적인 최극의 분별불가 감독자들이 초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 높은 행정-관리적 주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아(亞)절대 행정-관리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개인성들인데, 그들은 정착된 우주들에서 즉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 분별불가 감독자가 창조의 발전된 진화하는 단위체에서 충고자와 조언자들로써 오랫동안 기능해 왔더라도, 그들은 최극존재의 권한이 주권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행정-관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신(新)시대 동안 더욱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최극자의 분별불가 감독자들은 유한, 아(亞)절대, 궁극, 또는 무한이 아니다; 그들이 최극위(最極位)이며 오직 최극자 하느님을 대표할 뿐이다. 그들은 시간-공간 최극위의 개인성구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보나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최극 통합자들로써 활동한다. 그들은 아마 우주 반영성의 기법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대우주(하보나에 의존하는 일곱 초우주들)가 빛과 생명 속에 전반적으로 정착될 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념을 우리들 중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건은 중앙우주가 출현한 이래 영원의 연대기(年代記)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생될 것이 틀림없다. 최극존재 자신이 자신의 영 개인을 덮으면서 하보나 신비로부터 창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갖는 완전하게 된 창조의 전능하고도 체험적인 주권자로서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사장 협의회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sometime arrival of outer-spacers on their way in to Havona and Paradise; but we really do not know.

55:12.3 (636.4) If and when a superuniverse should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we believe that the now advisory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would become the high administrative body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the superuniverse. These are the personalities who are able to contact directly with the absonite administrators, who will forthwith become active in the settled superuniverse. Although these Unqualified Supervisors have long functioned as advisers and counselors in advanced evolutionary units of creation, they do not assum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until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Being becomes sovereign.

55:12.4 (636.5)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who function more extensively during this epoch, are not finite, absonite, ultimate, or infinite; they are supremacy and only represent God the Supreme. They are the personalization of time-space supremacy and therefore do not function in Havona. They function only as supreme unifiers. They may possibly be involved in the technique of universe reflectivity, but we are not certain.

55:12.5 (636.6) None of us entertain a satisfactory concept of what will happen when the grand universe (the seven superuniverses as dependent on Havona) becomes entirely settled in light and life. That event will undoubtedly be the most profound occurrence in the annals of eternity since the appearance of the central universe. There are those who hold that the Supreme Being himself will emerge from the Havona mystery enshrouding his spirit person and will become residential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as the almighty and experiential sovereign of the perfected creations of time and space. But we really do not know.

55:12.6 (636.7)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assigned to the Archangel Council on Urantia.]

제 56 편 우주 합일

⇨ 055

유랜시아 책

05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56 편 우주 합일

섹션

소개

제 1 장. 물리적 조화-협동

제 2 장. 지적 합일

제 3 장. 영적 통일

제 4 장. 개인성 통일

제 5 장. 신(神) 합일

제 6 장. 진화적인 신(神)의 통일

제 7 장. 우주적 진화 반향들

제 8 장. 최극 통합자

제 9 장. 우주적 절대 합일

제 10 장.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PAPER 56

UNIVERSAL UNITY

SECTIONS

Introduction

1. Physical Co-ordination

2. Intellectual Unity

3. Spiritual Unification

4. Personality Unification

5. Deity Unity

6. Unification of Evolutionary Deity

7. Universal Evolutionary Repercussions

8. The Supreme Unifier

9. Universal Absolute Unity

10. Truth, Beauty, and Goodness

소개

하느님은 합일체이다. 신(神)은 우주적으로 조화-협동되어 있다.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의 무한 마음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제되는 하나의 거대한 집대성된 기능구조이다. 우주적 창조의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 권역들은 신성하게 상관관계 되어 있다. 완전한 존재들과 불완전한 존재들은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에 따라 유한한 진화적 창조체는 우주 아버지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여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도 있다.

창조체의 다양한 차원들은 주(主)우주 고안권 추가들의 계획과 관리-행정 속에서 모두 통합되어 있다. 시간-공간 필사자들의 제한된 마음에게는 우주가 겉으로 보기에 조화-협동을 이루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나타내고 효과적인 조화-협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겠지만; 보다 넓게 퍼져나가는 우주적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이 활동 전체에 퍼져 있는 신성한 하나 됨을 발견하는 그리고 창조적 다양성의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 합일성을 감지하는 이 기술을 더욱 체험하는 우리들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에 대

INTRODUCTION

56:0.1 (637.1) GOD is unity. Deity is universally co-ordinated.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one vast integrated mechanism which is absolutely controlled by one infinite mind.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domains of universal creation are divinely correlated. The perfect and imperfect are truly interrelated, and therefore may the finite evolutionary creature ascend to Paradise in obedience to the Universal Father's mandate: "Be you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56:0.2 (637.2) The diverse levels of creation are all unified in the plans and administra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o the circumscribed minds of time-space mortals the universe may present many problems and situations which apparently portray disharmony and indicate abse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but those of us who are able to observe wider stretches of universal phenomena, and who are more experienced in this art of detecting the basic unity which underlies creative diversity and of

한 이 다중 현시활동들 전체 속에 나타난 신성하고도 유일한 목적을 더 잘 인식한다.

discovering the divine oneness which overspreads all this functioning of plurality, better perceive the divine and single purpose exhibited in all these manifold manifestations of universal creative energy.

제 1 장. 물리적 조화-협동

물리적 또는 물질적 창조는 무한하지 않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조화-협동을 이룬다. 거기에는 기세와 에너지 그리고 힘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기원에서 모두 하나이다. 일곱 개의 초우주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원적(二元的)이다; 중앙우주는 삼원일체(三元一體)적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단일 구조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모든 물질우주들—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실제적인 근원이다. 그러나 이 조화우주의 유래는 영원 사건이다; 공간이나 물질적 우주는 핵심적인 빛의 섬으로부터 나온 때—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가 결코 없다. 조화우주 근원으로서 파라다이스는 공간에 앞서 그리고 시간 이전에 기능 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유래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고아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들은 공간에서의 그들의 궁극적 저장소 그리고 시간에서의 그들의 계시자 그리고 규제자인 분별불가 절대자를 통해 창발하지 않았다.

분별불가 절대자가 물질적 우주를 유지하는 반면, 신(神) 절대자는 모든 물질적 실체에 대한 지극히 아름다운 전반적-통제를 발동시키며; 두 절대자들은 우주 절대자에 의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 물질적 우주의 이 밀접한 상관관계성은 파라다이스 아래에 중심을 두는 중력에 대한 모든 진실한 물질적 실체의 중력 반응을 목격함으로써 모든 개인성들—물질적, 모론시아, 아(亞)절대, 또는 영적—에게 가장 잘 납득된다.

중력 통일은 우주적이고 불변적이다; 순수-에너지 반응도 마찬가지로 우주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순수 에너지(원초기세)와 순수 영은 중력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절대자들 속에 부여된 이 원초기세들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된다; 그래서 모든 중력은 순수 에너지 그리고 순수 영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적 현존 속에 그리고 그의 초(超)물질적 거주지 속에 중심을 둔다.

순수 에너지가 모든 상대적인, 비(非) 영 기능적 실체들의 조상인 반면, 순수 영은 모든 기본 에너지 체계들에 대한 신성한 그리고 지배적인 전반적-통제의 잠재다. 그리고 공간에 두루 현시된 것처럼 그리고 시간 동작에서 관찰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 실체들은 둘 모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 속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그 분 안에서 하나—만드시 통합되어 있어야 함—인데 하느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개인성은 절대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아버지하느님의 무한 본성 안에서는, 물질적

1. PHYSICAL CO-ORDINATION

56:1.1 (637.3) The physical or material creation is not infinite, but it is perfectly co-ordinated. There are force, energy, and power, but they are all one in origin.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seemingly dual; the central universe, triune; but Paradise is of single constitution. And Paradise is the actual source of all material universes — past, present, and future. But this cosmic derivation is an *eternity* event; at no *time* — past, present, or future — does either space or the material cosmos come forth from the nuclear Isle of Light. As the cosmic source, Paradise functions prior to space and before time; hence would its derivations seem to be orphaned in time and space did they not emerge through the Unqualified Absolute, their ultimate repository in space and their revealer and regulator in time.

56:1.2 (637.4) The Unqualified Absolute upholds the physical universe, while the Deity Absolute motivates the exquisite overcontrol of all material reality; and both Absolutes are functionally unified by the Universal Absolute. This cohesive correlation of the material universe is best understood by all personalities — material, morontia, absonite, or spiritual — by the observation of the gravity response of all bona fide material reality to the gravity centering on nether Paradise.

56:1.3 (638.1) Gravity unification is universal and unvarying; pure-energy response is likewise universal and inescapable. Pure energy (primordial force) and pure spirit are wholly preresponsive to gravity. These primal forces, inhering in the Absolutes, are personally controlled by the Universal Father; hence does all gravity center in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of pure energy and pure spirit and in his supermaterial abode.

56:1.4 (638.2) Pure energy is the ancestor of all relative, nonspirit functional realities, while pure spirit is the potential of the divine and directive overcontrol of all basic energy systems. And these realities, so diverse as manifested throughout space and as observed in the motions of time, are both centered in the person of the Paradise Father. In him they are one — must be unified — because God is one. The Father's personality is absolutely unified.

56:1.5 (638.3) In the infinite nature of God the Father

이면서 영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실체의 이원성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적 가치들에 대한 무한한 차원들과 절대적 실체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들 두 실체들의 실존을 관찰하며, 이들이 그의 개인적 현존에 대해 충만하게 반응하는 것을 인지한다; 그 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너희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무한한 개인성의 분별불가한 개념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너희는 마음을, 이들 이원적(二元的) 우주적 현시활동의 언제까지나 확장되는 다양성을 통합하는 필연적 기법으로서, 기원적 유일신 창조자 개인성, 첫째 근원이며 중심—스스로 이신 이—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장. 지적 합일

생각-아버지는 영 표현을 말씀-아들 안에서 실현하며, 멀리 퍼져 나가는 물질적 우주들 안에서 파라다이스를 통해 실체 확대를 달성한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 표현들은 무한한 영의 활동에 의해, 그의 마음에서의 영-반응 사명활동에 의해 창조의 물질적 차원들과 상관관계되며, 마음에서의 그의 물리-지향적 활동들에 의해, 신(神)의 영적 실체들 그리고 신(神)의 물질적 반향들이 상관관계된다.

마음은 무한한 영의 기능적 자질이며, 그러므로 잠재에서 무한하고 증여에서 우주적이다. 우주 아버지의 시원적 생각은 이원적(二元的) 표현으로 영원화 된다; 바로 파라다이스 섬과 그리고 그의 신(神)이 동등하게 영적인 것, 곧 영원한 아들로 영원화 된다. 영원한 실체의 그러한 이원성(二元性)은 마음 하느님, 무한한 영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마음은 영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사이의 통신에서의 필요불가결한 통로이다. 물질적 진화 창조체는 마음의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내주하는 영을 착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하고 우주적인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속에서 조화우주 마음으로 베풀어진다; 그리고 보조 영들의 원시적 사명활동에서부터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장엄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지만, 그래도 이 조화우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최극 마음과 차례로 조화-협동된, 그리고 무한한 영의 모든 것을-포용하는 마음과 완전하게 상관관계된, 일곱 주(主) 영들의 감독 안에서 알맞게 통합된다.

제 3 장. 영적 통일

우주 마음 중력이 무한한 영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 속에 중심을 두듯이, 우주 영 중력은 영

there could not possibly exist duality of reality, such as physical and spiritual; but the instant we look aside from the infinite levels and absolute reality of the personal values of the Paradise Father, we observe the existence of these two realities and recognize that they are fully responsive to his personal presence; in him all things consist.

56:1.6 (638.4) The moment you depart from the unqualified concept of the infinite personality of the Paradise Father, you must postulate MIND as the inevitable technique of unifying the ever-widening divergence of these dual universe manifestations of the original monothetic Creator personalit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the I AM.

2. INTELLECTUAL UNITY

56:2.1 (638.5) The Thought-Father realizes spirit expression in the Word-Son and attains reality expansion through Paradise in the far-flung material universes. The spiritual expressions of the Eternal Son are correlated with the material levels of creation by the functions of the Infinite Spirit, by whose spirit-responsive ministry of mind, and in whose physical-directive acts of mind, the spiritual realities of Deity and the material repercussions of Deity are correlated the one with the other.

56:2.2 (638.6) Mind is the functional endowment of the Infinite Spirit, therefore infinite in potential and universal in bestowal. The primal thought of the Universal Father eternalizes in dual expression: the Isle of Paradise and his Deity equal, the spiritual and Eternal Son. Such duality of eternal reality renders the mind God, the Infinite Spirit, inevitable. Mind is the indispensable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spiritual and material realities. The material evolutionary creature can conceive and comprehend the indwelling spirit only by the ministry of mind.

56:2.3 (638.7) This infinite and universal mind is ministered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s the cosmic mind; and though extending from the primitive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up to the magnificent mind of the chief executive of a universe, even this cosmic mind is adequately unified in the supervis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are in turn co-ordinated with the Supreme Mind of time and space and perfectly correlated with the all-embracing mind of the Infinite Spirit.

3. SPIRITUAL UNIFICATION

56:3.1 (639.1) As the universal mind gravity is centered in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the

원한 아들의 파라다이스 개인적 현존에 중심을 둔다. 우주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시간-공간에 대하여 그는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의 이원적(二元的) 현상으로 계시된다.

파라다이스 영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만, 모든 시간-공간 상황들과 관계들에 있어서 이 단일 영은 영원한 아들과 영 개인성들의 발산 그리고 무한한 영과 연관-동료 창조체들의 감화력이라는 이원적(二元的) 현상으로 계시된다; 또 다른 제3의—순수-영 단편(斷片)들—생각 조절자들이라는 아버지의 증여와 전(前)개인적 상태에 있는 다른 영 실존개체들이 있다.

너희가 우주 활동들의 어떤 차원(次元)에서 영적 현상들을 만나거나 영 존재들과 접촉하더라도, 너희는 그들 모두가 영 아들과 무한 마음 영의 사명활동으로 영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멀리-퍼지는 이 영은 그것이 지역우주들의 본부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에 따라 그렇게 시간의 진화 세계들에서의 현상으로 기능한다. 성령과 진리의 영은 창조자 아들들의 이 본부들로부터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과 함께 물질적 마음들의 더 낮고 진화하는 차원들에게로 온다.

마음이 최극존재와 관계적-연합하여 그리고 절대 마음에 종속하는 조화우주 마음으로서 주(主) 영들의 차원에서 더욱 통합되는 반면, 진화하는 세계들에 대한 영 사명활동은 지역우주들의 본부에 거주하는 개인성들 안에서, 그리고 지배하는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의 개인들 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통합되며, 이들 신성한 사명활동자들은 모든 시간-공간 영 현시활동들의 최종적 통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영원한 아들의 파라다이스 중력 순환회로와 거의 완전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완전하게 된 창조체 실존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들 중 어느 하나의 삼위일체-이전(以前) 영 자질의 단편(斷片)과 자아-의식 마음이 융합함으로써 달성되고 유지되며 영구화될 수 있다. 필사자 마음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아들과 딸들의 창조이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 조절자와 결합할 때 진화 세계들의 삼중적 영 자질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영 표현들은 최종자속에서 완전하게 통합되는데, 그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우주적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통합되어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였던 것과 같다.

영은 항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삼중적으로 되어야만 하며 최종적 실현에 있어서 삼위일체-통합이어야 한다. 영은 삼중적 표현에 두루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기원된다; 최종 안에

Infinite Spirit, so does the universal spirit gravity center in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the Eternal Son. The Universal Father is one, but to time-space he is revealed in the dual phenomena of pure energy and pure spirit.

56:3.2 (639.2) Paradise spirit realities are likewise one, but in all time-space situations and relations this single spirit is revealed in the dual phenomena of the spirit personalities and emanations of the Eternal Son and the spirit personalities an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associated creations; and there is yet a third — pure-spirit fragmentations — the Father's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other spirit entities which are prepersonal.

56:3.3 (639.3) No matter on what level of universe activities you may encounter spiritual phenomena or contact with spirit beings, you may know that they are all derived from the God who is spirit by the ministry of the Spirit Son and the Infinite Mind Spirit. And this far-flung spirit functions as a phenomen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s it is direct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s. From these capitals of the Creator Sons come the Holy Spirit and the Spirit of Truth,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to the lower and evolving levels of material minds.

56:3.4 (639.4) While mind is more unified on the level of the Master Spirits in association with the Supreme Being and as the cosmic mind in subordination to the Absolute Mind, the spirit ministry to the evolving worlds is more directly unified in the personalities resident on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s and in the persons of the presiding Divine Ministers, who are in turn well-nigh perfectly correlated with the Paradise 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wherein occurs final unification of all time-space spirit manifestations.

56:3.5 (639.5) Perfected creature existence can be attained, sustained, and eternalized by the fusion of self-conscious mind with a fragment of the pre-Trinity spirit endowment of some one of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The mortal mind is the creation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nd, when fused with the Thought Adjuster from the Father, partakes of the threefold spirit endowment of the evolutionary realms. But these three spirit expressions become perfectly unified in the finalizers, even as they were in eternity so unified in the Universal I AM ere he ever became the Universal Father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56:3.6 (639.6) Spirit must always and ultimately become threefold in expression and Trinity-unified in final realization. Spirit originates from one source through a threefold expression; and in

서, 그것은 영원 속에서 하느님—신성과 하나됨—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우주적 사고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무한한 표현의 조화우주마음의 사명활동이라는 수단에 의해 체험되는 그 신성한 통일 속에서 충만한 실현을 이루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제 4 장. 개인성 통일

우주 아버지는 신성하게 통합된 개인성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질적 필사자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아왔던 생각 조절자들의 반동 추진력에 의해 파라다이스로 옮겨지는 그의 모든 상승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히 통합된 개인성들이 될 것이다.

개인성은 선천적으로 모든 요소 실체들을 통합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첫째근원이며 중심, 우주 아버지의 무한 개인성은 일곱 요소의 모든 무한성의 절대자들을 통합 한다; 우주 아버지의 독점적이고도 직접적인 증여를 받는, 필사자 사람의 개인성도 필사 창조체의 구성 요소 성분들을 통합하는 잠재를 소유한다. 모든 창조체 개인성의 그러한 통합하는 창조성은 그것의 높고도 독점적인 근원의 출생반점이고 개인성 순환회로에 두루 동일한 이 근원과 계속적인 접촉을 이루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는데,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개인성의 아버지와의 직접적이고도 계속적인 접촉을 창조체의 개인성이 유지하는 수단에 의해서이다.

하느님이 칠중의 권역들로부터 최극위와 궁극위를 거쳐 절대자 하느님에 이르기까지 현시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개인 속에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중심을 두는 개인성 순환회로는 지능체 실존의 모든 차원들에 있어서 그리고 완전한, 완전하게 된, 그리고 완전하게 되고 있는 우주들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모든 창조체 개인성들을 고려하는 한 신성한 개인성의 이 다양한 표현들 전체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통일을 제공한다.

우리가 설명해 온 모든 우주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다른 모든 창조체들에게 있어서 그는 한 분, 너희의 아버지인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이다. 개인성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복수일 수 없다.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체들 각자에게 아버지이며, 하나 이상의 아버지를 갖는 것은 어떤 자녀에게도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철학적으로, 조화우주로 볼 때, 그리고 현시 활동에 대한 특이한 차원들 그리고 위치들을 고려할 때 너희는 복수의 신(神)들의 활동을 상상하고 복수의 삼위일체들의 실존을 가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주(主)우주에 두루 경배하는 각 개인성에 대한 개인적 접촉의 경배 체

finality it must and does attain its full realization in that divine unification which is experienced in finding God — oneness with divinity — in eternity, and by means of the ministry of the cosmic mind of the infinite expression of the eternal word of the Father's universal thought.

4. PERSONALITY UNIFICATION

56:4.1 (639.7) The Universal Father is a divinely unified personality; hence will all his ascendant children who are carried to Paradise by the rebound momentum of the Thought Adjusters, who went forth from Paradise to indwell material mortals in obedience to the Father's mandate, likewise be fully unified personalities ere they reach Havona.

56:4.2 (640.1) Personality inherently reaches out to unify all constituent realities. The infinit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Universal Father, unifies all seven constituent Absolutes of Infinity; and the personality of mortal man, being an exclusive and direct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likewise possesses the potential of unifying the constituent factors of the mortal creature. Such unifying creativity of all creature personality is a birthmark of its high and exclusive source and is further evidential of its unbroken contact with this same source through the personality circuit, by means of which the personality of the creature maintains direct and sustaining contact with the Father of all personality on Paradise.

56:4.3 (640.2) Notwithstanding that God is manifest from the domains of the Sevenfold up through supremacy and ultimacy to God the Absolute, the personality circuit, centering on Paradise and in the person of God the Father, provides for the complete and perfect unification of all these diverse expressions of divine personality so far as concerns all creature personalities on all levels of intelligent existence and in all the realms of the perfect, perfected, and perfecting universes.

56:4.4 (640.3) While God is to and in the universes all that we have portrayed, nevertheless, to you and to all other God-knowing creatures he is one, your Father and their Father. To personality God cannot be plural. God is Father to each of his creatures, and it is literally impossible for any child to have more than one father.

56:4.5 (640.4) Philosophically, cosmically, and with reference to differential levels and locations of manifestation, you may and perforce must conceive of the functioning of plural Deities and postulate the existence of plural Trinities; but in the worshipful experience of the personal contact of

힘 안에서 하느님은 한 분이다; 통합되고 개인적인 신(神)은 우리의 파라다이스 부모, 증여자, 보호자, 그리고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중앙 빛의 섬에 있는 영원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성들의 아버지이다.

제 5 장. 신(神) 합일

파라다이스 신(神)의 단일성, 분할-불가능성은 실존적이며 절대적이다. 신(神)의 영원한 3가지 개인성구현—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들이 있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실재적으로 한 신(神), 나뉘어 있지 않고 나뉘 수 없는 분이다.

실존적 실체의 기원적 파라다이스-하보나 차원으로부터, 하위-절대인 두 차원들이 분화되었고, 그 후 즉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수많은 개인 연관-동료들과 종속체들의 창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궁극위의 초월적 차원들에서의 아(亞)절대 신(神) 통일에 대한 고려를 시도하는 것이 이러한 연결 안에서는 부적절하지만, 그들에게서 신성이 다양한 창조 구역들에 대해 그리고 지능 존재들의 서로 다른 계층들에 대해 기능적으로 현시되고 있는, 다양한 신(神) 개인성구현의 통합하는 기능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는 일은 가능하다.

초우주들 안에서의 신성의 현재 기능은 최극 창조자들—지역우주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영들, 초우주 옛적으로 늘 계신 이,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일곱 주(主) 영들—의 활동 안에 현시되고 있다. 이들 존재들은 우주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이끄는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을 구성하며, 칠중 하느님의 이 전체 권역은 진화하는 최극존재 안에 있는, 체험적 신(神) 첫 차원에서 조화-협동을 이루고 있다.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 안에서, 신(神) 합일은 실존하는 하나의 사실이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신(神) 합일은 하나의 업적이다.

제 6 장. 진화적인 신(神)의 통일

신(神)의 영원한 세 개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神)으로 활동할 때, 그들은 완전한 합일을 성취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연관하거나 나뉘어서 창조할 때, 그들의 파라다이스 자손은 신성의 특징적 합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공간 권역들의 최극 창조자들과 통치자들에 의해 현시되는 이러한 목적의 신성은, 우주의 미(未)개인적 에너지 합일체의 현존 안에서, 체험적 신(神)의 체험적 개인성 실체들과의 합당한 통일을 통해서만 풀려질 수 있는 실체 긴장을

every worshiping personality throughout the master universe, God is one; and that unified and personal Deity is our Paradise parent, God the Father, the bestower, conservator, and Father of all personalities from mortal man on the inhabited worlds to the Eternal Son on the central Isle of Light.

5. DEITY UNITY

56:5.1 (640.5) The oneness, the indivisibility, of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and absolute. There are three eternal personalizations of Deity —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 but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are *actually* one Deity, undivided and indivisible.

56:5.2 (640.6) From the original Paradise-Havona level of existential reality, two subabsolute levels have differentiated, and thereon have the Father, Son, and Spirit engaged in the creation of numerous personal associates and subordinates. And while it is inappropriate in this connection to undertake the consideration of absonite deity unification on transcendental levels of ultimacy, it is feasible to look at some features of the unifying function of the various Deity personalizations in whom divinity is functionally manifest to the diverse sectors of creation and to the different orders of intelligent beings.

56:5.3 (640.7) The present functioning of divinity in the superuniverses is actively manifest in the operations of the Supreme Creators — the local universe Creator Sons and Spirits, the superuniverse Ancients of Days, and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These beings constitute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leading inward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entire domain of God the Sevenfold is coordinating on the first level of experiential deity in the evolving Supreme Being.

56:5.4 (641.1) On Paradi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Deity unity is a fact of existence.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Deity unity is an achievement.

6. UNIFICATION OF EVOLUTIONARY DEITY

56:6.1 (641.2) When the three eternal persons of Deity function as undivided Deity in the Paradise Trinity, they achieve perfect unity; likewise, when they create, either associatively or severally, their Paradise progeny exhibit the characteristic unity of divinity. And this divinity of purpose manifested by the Supreme Creators and Rulers of the time-space domains eventuates in the unifying power potential of the sovereignty of experiential supremacy which, in the presence of the

구성하는, 체형적 최극위에 있는 주권의 통일하는 힘 잠재로서 결국 생겨난다.

최극존재의 개인성 실체들은 파라다이스 신(神)들로부터 나오며 외부 하보나 순환회로의 선도(先導)세계들 위에서 대우주의 창조자 신성들로부터 나오는 최극 전능자의 힘 특권들과 통합한다. 한 개인으로서의 최극위 하느님은 일곱 초우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보나에 존재하였지만,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활동하였다. 진화하는 우주들 안에 있는 다양한 신성 합성에 의한 최극위의 전능자 힘의 진화는, 최극 마음에 의하여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의 영적 개인과 조화-협동하며 동시에 무한한 영의 무한 마음속에 내재하는 잠재로부터 최극존재의 활동하는 기능적 마음으로 전환되는, 신(神)의 새로운 힘 현존으로 결국 생겨난다.

일곱 초우주의 진화 세계의 물질-마음을 가진 창조체들은 신(神) 합일을 오직 최극존재의 이 힘-개인성 합성으로 진화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실존 차원에서든지 하느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사는 존재들의 개념적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필사자 사람은 진리를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善)에 대한 경배를 통하여,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고 그리고는 최극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상승해가는 신(神) 차원들을 거치면서 진보해야만 한다. 신(神)은 그렇게 힘 안에서 통합되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조체가 납득하고 달성하는 영으로 개인성구현될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초우주들의 수도에서 전능자에 대한 힘 이해력을 성취하고 하보나의 외계 순환회로들에서 최극자에 대한 개인성 이해력을 성취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을 발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처럼 그에 따라, 최극존재를 실제적으로 발견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단계 영들인 최종자조차도 최극존재를 발견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곱 번째-단계-영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최극자가 미래의 외계 우주들의 활동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상승자들이 우주 아버지를 칠중 하느님의 일곱 번째 차원으로 발견할 때, 그들은 이미 우주 창조체들과의 개인적 관계들에 대한 모든 신(神) 차원들의 첫째 개인의 개인성을 달성한다.

impersonal energy unity of the universe, constitutes a reality tension that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adequate unification with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realities of experiential Deity.

56:6.2 (641.3) Th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Supreme Being come forth from the Paradise Deities and on the pilot world of the outer Havona circuit unify with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Supreme coming up from the Creator divinities of the grand universe. God the Supreme as a person existed in Havona before the cre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he functioned only on spiritual levels.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Supremacy by diverse divinity synthesis in the evolving universes eventuated in a new power presence of Deity which co-ordinated with the spiritual person of the Supreme in Havona by means of the Supreme Mind, which concomitantly translated from the potential resident in the infinit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active functional mind of the Supreme Being.

56:6.3 (641.4) The material-minded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can comprehend Deity unity only as it is evolving in this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On any level of existence God cannot exceed the conceptual capacity of the beings who live on such a level. Mortal man must, through the recognition of truth, the appreciation of beauty, and the worship of goodness, evolve the recognition of a God of love and then progress through ascending deity levels to the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Deity, having been thus grasped as unified in power, can then be personalized in spirit to creature understanding and attainment.

56:6.4 (641.5) While ascending mortals achieve power comprehension of the Almighty on the capitals of the superuniverses and personality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on the outer circuits of Havona, they do not actually find the Supreme Being as they are destined to find the Paradise Deities. Even the finaliters, sixth-stage spirits, have not found the Supreme Being, nor are they likely to until they have achieved seventh-stage-spirit status, and until the Supreme has become actually functional in the activities of the future outer universes.

56:6.5 (641.6) But when ascenders find the Universal Father as the seventh level of God the Sevenfold, they have attained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Person of *all* deity levels of personal relationships with universe creatures.

제 7 장. 우주적 진화 반향들

7. UNIVERSAL EVOLUTIONARY REPERCUSSIONS

시간-공간 우주들 안에서의 진화의 꾸준한 진보는 모든 지능 창조체들에 대한 신(神)의 계속-확대되는 계시들을 동반한다. 세계에서, 체계, 별자리, 우주, 초우주에서, 또는 대우주 안에서의 진화적 진보가 절정에 달하는 것은 창조의 이러한 진보 단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신(神) 기능의 상응하는 확대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신성 실현의 그러한 각각의 지역 향상에는 창조의 모든 다른 구역들에 대한 확대된 신(神) 현시활동의 어떤 뚜렷한 반향을 동반한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밖을 향해 확장함에 있어서, 실현된 그리고 달성된 진화의 새로운 각 권역은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신(神)의 새롭고도 더욱 커진 계시를 구성한다.

지역우주의 구성원들이 빛과 생명 속에 점진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칠중 하느님이 점점 더 현시된다. 시간-공간 진화는 통제 속에서 칠중 하느님—창조자 아들-창조 영 관계적-연합—의 첫 번째 표현과 함께 행성에서 시작한다. 체계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 아들-영 연락은 충만한 기능을 달성 한다; 전체 별자리가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 칠중 하느님의 두 번째 위상은 그러한 영역에 두루 더욱 활동적이 된다. 지역우주의 완성된 행정-관리적 진화가 초우주 주(主) 영들의 새롭고도 더욱 직접적인 돌봄에 의해 성취된다; 이 시점에, 여섯 번째 하보나 순환회로의 세계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최극존재에 대한 상승자의 이해 안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최극자 하느님의 언제까지나-증대되는 계시와 실현이 또한 시작된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은 지능 창조체들에 대한 실존적 신(神) 현시활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마음과 영 창조체들과의 개인성 관계에서 비슷하게 확대되지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그들이 이들 신(神)들을 개인적 존재들로 접촉하고 그들에 대해 체험적인 개인적 인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영적으로 되고 합당하게 교육을 받기 훨씬 이전에 신(神)의 계속 이어지는 차원들의 미(未)개인적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창조의 구역 안에서의 새로운 각각의 진화적 달성은, 신성 현시활동들에 의한 공간의 모든 새로운 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창조 중에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그 이전에 조직된 단위들 안에서 신(神) 기능적-계시의 동시적 확대에 의해 성취된다. 우주들과 그것들의 구성단위들의 행정-관리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 채도는 여기에 약술(略述)한 기법에 항상 정확하게 입각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관리적 전반적-통제의 그 이후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들을 위해

56:7.1 (642.1) The steady progress of evolution in the time-space universes is accompanied by ever-enlarging revelations of Deity to all intelligent creatures. The attainment of the height of evolutionary progress on a world, in a system, constellation, universe, superuniverse, or in the grand universe signals corresponding enlargements of deity function to and in these progressive units of creation. And every such local enhancement of divinity realization is accompanied by certain well-defined repercussions of enlarged deity manifestation to all other sectors of creation. Extending outward from Paradise, each new domain of realized and attained evolution constitutes a new and enlarged revelation of experiential Deity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56:7.2 (642.2) As the components of a local universe are progressively settled in light and life, God the Sevenfold is increasingly made manifest. Time-space evolution begins on a planet with the first expression of God the Sevenfold — the Creator Son-Creative Spirit association — in control. With the settling of a system in light, this Son-Spirit liaison attains the fullness of function; and when an entire constellation is thus settled, the second phase of God the Sevenfold becomes more active throughout such a realm. The completed administrative evolution of a local universe is attended by new and more direct ministrations of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s; and at this point there also begins that ever-expanding revelation and realization of God the Supreme which culminates in the ascender's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Being while passing through the worlds of the sixth Havona circuit.

56:7.3 (642.3)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existential deity manifestations to intelligent creatures and are not, therefore, similarly expanded in personality relations with the mind and spirit creatures of all creation.

56:7.4 (642.4) It should be noted that ascending mortals may experience the impersonal presence of successive levels of Deity long before they become sufficiently spiritual and adequately educated to attain experiential personal recognition of, and contact with, these Deities as personal beings.

56:7.5 (642.5) Each new evolutionary attainment within a sector of creation, as well as every new invasion of space by divinity manifestations, is attended by simultaneous expansions of Deity functional-revelation within the then existing and previously organized units of all creation. This new invasion of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universes and their component units may not always appear to be executed exactly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que herewith outlined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은 행정-관리자들 중에서 진보된 집단들을 보내는 것이 실천 관행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궁극자 하느님도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지역우주의 후기 단계들 동안 우주들에 대해 자신의 초월적 전반적-통제를 전조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들이 진화적 지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될 때,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현시활동들의 상응하는 칠수에 수반하여 최극위 하느님의 새롭고도 더욱 충만한 기능이 관측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최극위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들에 대해 직접적 통제를 시작한다면 칠중 하느님의 창조자-창조적 현시활동들의 미래 활동은 무엇이 될 것인가? 시간-공간 우주들의 이 조직자들과 개척자들이 외계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위해 해방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에 많이 추측하고 있다.

체험적 신(神)의 개척자들이 분별불가 절대자의 권역들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이들 창조계 중 비교적 초기 진화하는 신(新)시대들 동안에서의 칠중 하느님의 활동을 상상해 본다. 우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초우주 주(主) 영들의 미래 지위에 관하여 모두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극존재가 일곱 초우주들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기능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들이 이들 외계 우주에서 기능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이들은 미래 시대가 연관된 창조자 아들과 신성한 사명활동자 사이에 보다 더 가까운 형태의 연합을 목격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한다; 그러한 창조자 연합이 궁극적 본성의 연관-창조자 정체성의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 결국 생겨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이 가능성들에 관하여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른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칠중 하느님이 우주 아버지에게 진보적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 진화적 접근이 최극위 하느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계 우주들 안에서 그러한 계획이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우주들에 거주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궁극적 차원들에서 그리고 아(亞)절대 기법에 의해 신(神)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외계 공간의 미래 우주들 안에서 어떤 신(神) 접근의 기법이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된 그 초우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외계 창조계들에서 거주하게 될 저들 존재들의 파라다이스-상승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미래 시대에 일곱 주(主) 영들의 협동과 함께 또는 협동 없

because it is the practice to send forth advance groups of administrators to prepare the way for the subsequent and successive eras of new administrative overcontrol. Even God the Ultimate foreshadows his transcendental overcontrol of the universes during the later stages of a local universe settled in light and life.

56:7.6 (642.6) It is a fact that, as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progressively settled in evolutionary status, there is observed a new and fuller functioning of God the Supreme concomitant with a corresponding withdrawing of the first three manifestations of God the Sevenfold. If and when the grand universe becomes settled in light and life, what then will be the future function of the Creator-Creative manifestations of God the Sevenfold if God the Supreme assumes direct control of thes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these organizers and pioneers of the time-space universes to be liberated for similar activities in outer space? We do not know, but we speculate much concerning these and related matters.

56:7.7 (643.1) As the frontiers of experiential Deity are extended out into th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e envision the activity of God the Sevenfold during the earlier evolutionary epochs of these creations of the future. We are not all in agreement respecting the future status of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superuniverse Master Spirits. Neither do we know whether or not the Supreme Being will therein function a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we all conjecture that the Michaels, the Creator Sons, are destined to function in these outer universes. Some hold that the future ages will witness some closer form of union between the associated Creator Sons and Divine Ministers; it is even possible that such a creator union might eventuate in some new expression of associate-creator identity of an ultimate nature. But we really know nothing about these possibilities of the unrevealed future.

56:7.8 (643.2) We do know, however, that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God the Sevenfold provides a progressive approach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at this evolutionary approach is experientially unified in God the Supreme. We might conjecture that such a plan must prevail in the outer universes; on the other hand, the new orders of beings that may sometime inhabit these universes may be able to approach Deity on ultimate levels and by absonite techniques. In short, we have not the slightest concept of what technique of deity approach may become operative in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56:7.9 (643.3) Nevertheless, we deem that the perfected superuniverses will in some way become a part of the Paradise-ascension careers of those beings who may inhabit these outer creations. It is quite possible that in that future age

이 최극위 하느님에 의해 관리-운영되면서, 일곱 초우주들을 통해 하보나에 접근하는 외계-공간자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제 8 장. 최극 통합자

최극존재는 필사자 사람의 체험 속에서 삼중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로, 그는 시간-공간 신성의 통합자, 칠중 하느님이다; 둘째로, 그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신(神)의 한계이다; 셋째로, 그는 아(亞)절대 마음, 영원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개인성과 교제하는 초월적 체험에 접근하는 필사자 사람의 유일한 큰길이다.

이미 지역우주에서 태어난, 초우주들 안에서 양육을 받고, 중앙우주에서 훈련을 받은, 상승하는 최종자는, 최극자 안에서 통합하는 칠중 하느님의 시간-공간 신성에 대한 이해의 충만한 잠재를 그들의 개인적 체험 속에 포용한다. 최종자는 그들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초우주들에서 연속적으로 봉사하는데, 그리하여 가능한 창조체 체험의 칠중 신성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험 위에 체험을 더한다. 내주하는 조절자들의 사망활동을 통하여 최종자는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바로 그러한 기법들에 의해서 최종자가 최극존재를 실제로 알게 되며, 그리고 그들이 외계 공간의 미래 우주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 이 최극 신(神)에 대해 봉사하고 계시하도록 운명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아버지 하느님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영으로, 창발하는 최극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행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 우주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봉사의 체험은 상호적이다. 아버지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음 차례로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최극존재에게 증여하고 있다(또는 할 지 모른다).

모든 창조적 현상들은 선행하는 창조자-영 활동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자기가 본 것들만 행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최극자에 대한 계시를 너희 동료들에게 시간 속에서 시작할 수 있고, 너희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상승하면서 이 계시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영원 속에서 너희는 진화의 이 하느님에 대한 증강되는 계시들을 최극의 차원—심지어는 궁극적인—에서 일곱 번째 단계 최종자로서 제시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we may witness outer-spacers approaching Havona through the seven superuniverses, administered by God the Supreme with or without the collabor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8. THE SUPREME UNIFIER

56:8.1 (643.4) The Supreme Being has a threefold function in the experience of mortal man: First, he is the unifier of time-space divinity, God the Sevenfold; second, he is the maximum of Deity which finite creatures can actually comprehend; third, he is mortal man's only avenue of approach to the transcendental experience of consorting with absonite mind, eternal spirit, and Paradise personality.

56:8.2 (643.5) Ascendant finaliters, having been born in the local universes, nurtured in the superuniverses, and trained in the central universe, embrace in their personal experiences the full potential of the comprehension of the time-spac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unifying in the Supreme. Finaliters serve successively in superuniverses other than those of nativity, thereby superimposing experience upon experience until the fullness of the sevenfold diversity of possible creature experience has been encompassed. Through the ministry of the indwelling Adjusters the finaliters are enabled to *find* the Universal Father, but it is by these techniques of experience that such finaliters come really to *know* the Supreme Being, and they are destined to the service and the *revelation* of this Supreme Deity in and to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56:8.3 (644.1) Bear in mind, all that God the Father and his Paradise Sons do for us, we in turn and in spirit have the opportunity to do for and in the emerging Supreme Being. The experience of love, joy, and service in the universe is mutual. God the Father does not need that his sons should return to him all that he bestows upon them, but they do (or may) in turn bestow all of this upon their fellows and upon the evolving Supreme Being.

56:8.4 (644.2) All creational phenomena are reflective of antecedent creator-spirit activities. Said Jesus, and it is literally true, “The Son does only those things which he sees the Father do.” In time you mortals may begin the revelation of the Supreme to your fellows, and increasingly may you augment this revelation as you ascend Paradiseward. In eternity you may be permitted to make increasing revelations of this God of evolutionary creatures on supreme levels — even ultimate — as seventh-stage finaliters.

제 9 장. 우주적 절대 합일

분별불가 절대자와 신(神)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에서 통합된다. 절대자들은 궁극자 안에서 조화-협동하고, 최극자 안에서 조절되며, 칠중 하느님 안에서 시간-공간이 변경된다. 하위-무한 차원들에서는 세 절대자들이 존재하지만, 영원 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나타난다. 파라다이스에서는 신(神)의 세 개인성구현들이 존재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다.

주(主)우주의 주요 철학적 명제는 이렇다: 절대자(무한 속에서 하나인 세 절대자들)는 삼위일체 전에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절대자는 삼위일체의 선행인가? 또는 삼위일체가 절대자의 선행인가?

분별불가 절대자는 삼위일체와는 독립된 하나의 기세 현존인가? 신(神) 절대자의 현존은 삼위일체의 무제한 기능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우주 절대자는 삼위일체, 심지어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최종 기능인가?

얼핏 생각에서, 절대자가 만물—심지어는 삼위일체—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일관성 충족과 철학적 통일에 대한 일시적인 만족을 잘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결론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의 실재성에 의해 무효가 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삼위일체 연관-동료들이 본성과 그리고 실존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일관된 철학적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우주 지능체들에 대하여 절대자는 우주 내부적인 그리고 우주 외부적인 모든 기본적인 시원적인 공간 상황들에 대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미(未)개인적 그리고 조화-협동하는 반응이다. 대우주의 모든 개인성 지능체들에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최종, 영원, 최극위, 그리고 궁극위 속에 언제나 서 있으며 개인적 이해와 창조체 실현의 모든 실천적 목적들에 대해 절대 상태로 있다.

창조체 마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들은 우주적 스스로 이신 이를 삼위일체와 절대자들 모두의 1차적 원인으로 그리고 분별불가한 근원으로 최종적인 가정을 세우도록 인도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개인적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원할 때, 우리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이상으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미(未)개인적 이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거나 자각을 증강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우주 아버지가 절대 개인성의 실존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회상 한다; 영원한 아들은, 그것이 비록 체험적 의미에서 절대자의 개인성구현은 아니겠지만, 절대 개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 체험적 삼위일체들을 신(神) 절대자의 체험적 개인성구현 안에서의 최고 정점으로 계속 상상하게 되는 반면, 우주 절대자를 최극위와 궁극위 그리고 무한—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통합되

9. UNIVERSAL ABSOLUTE UNITY

56:9.1 (644.3)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Deity Absolute are unified in the Universal Absolute. The Absolutes are co-ordinated in the Ultimate, conditioned in the Supreme, and time-space modified in God the Sevenfold. On subinfinite levels there are *three* Absolutes, but in infinity they appear to be *one*. On Paradise there are three personalizations of Deity, but in the Trinity they are *one*.

56:9.2 (644.4) The major philosophic proposi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is: Did the Absolute (the three Absolutes as one in infinity) exist before the Trinity? and is the Absolute ancestral to the Trinity? or is the Trinity antecedent to the Absolute?

56:9.3 (644.5) Is the Unqualified Absolute a force presence independent of the Trinity? Does the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connote the unlimited function of the Trinity? and is the Universal Absolute the final function of the Trinity, even a Trinity of Trinities?

56:9.4 (644.6) On first thought, a concept of the Absolute as ancestor to all things — even the Trinity — seems to afford transitory satisfaction of consistency gratification and philosophic unification, but any such conclusion is invalidated by the actuality of the eternity of the Paradise Trinity. We are taught, and we believe, that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Trinity associates are eternal in nature and existence. There is, then, but one consistent philosophic conclusion, and that is: The Absolute is, to all universe intelligences, the impersonal and co-ordinate reaction of the Trinity (of Trinities) to all basic and primary space situations, intrauniversal and extrauniversal. To all personality intelligences of the grand universe the Paradise Trinity forever stands in finality, eternity, supremacy, and ultimacy and, for all practical purposes of personal comprehension and creature realization, as absolute.

56:9.5 (644.7) As creature minds may view this problem, they are led to the final postulate of the Universal I AM as the primal cause and the unqualified source of both the Trinity and the Absolute. When, therefore, we crave to entertain a personal concept of the Absolute, we revert to our ideas and ideals of the Paradise Father. When we desire to facilitate comprehension or to augment consciousness of this otherwise impersonal Absolute, we revert to the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the existential Father of absolute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Person, though not, in the experiential sense, the personalization of the Absolute. And then we go on to envisage the experiential Trinities as culminating in the experiential person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while conceiving the Universal Absolute

고 조화-협동된 신(神) 관계적-연합의 미(未)개인적 활동들의 현존을 현시하는, 우주와 가외(加外) 우주 현상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착상한다.

아버지 하느님은 유한으로부터 무한에 이르는 모든 차원들에서 식별될 수 있으며, 파라다이스로부터 진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조체들이 그를 다양하게 알지라도 오직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그를 무한성으로 안다.

영적 개인성은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절대적이며,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오직 무한성 안에서만 분별불가적이다. 신(神) 현존은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절대적이며, 하느님의 계시는 항상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 안에서 그의 힘이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될 때까지 진보적이어야만 하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의 개인성 현시활동은 신(神) 절대자의 현시하는 현존 안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무한성의 이 두 잠재들은 우주 절대자 안에서 실체-통합이 된다.

그러나 하위-무한 차원들을 넘어서면 세 절대자들은 하나이며, 그리고 그로서 그 어떤 다른 실존 계층이 무한의 의식을 언제까지나 자아-실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신(神)-실현화된 무한이다.

영원 안에서 실존적 지위는, 비록 또 다른 영원이 무한한 영원—영원한 무한—안에 선천적인, 체험적 잠재에서의 자아-실현을 체험하도록 요구된다 하더라도, 실존적 무한의 자아-의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은 신(神)의 모든 현시활동의 개인적 근원이며 모든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지능 창조체를 그리고 영 존재들에게 실체이다. 개인성들로서, 현재 또는 영원한 미래의 계속되는 우주 체험들 안에서, 너희가 칠중 하느님에 대한 달성을 이루든지, 최극위 하느님을 이해하든지, 궁극자 하느님을 발견하든지, 또는 절대자 하느님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든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너희가 갖는 각 모험의 성취에 있어서 새로운 체험적 차원에서 영원한 하느님—모든 우주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을 다시 찾으리라는 점을 너희의 영원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그것이 최극적으로,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절대 가치들과 의미들—분별불가능한 실체—의 궁극 이후 합일 안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우주적 합일에 대한 설명이다.

주(主)기세조직자들은 공간 속으로 나아가고 그것의 에너지들을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흡인에 대해 중력 반응이 되도록 동원 한다; 그 후에 창조자 아들들이 그곳으로 오는데, 그들은 이 중력-반응 기세들을 거주민이 사는 우주들 안으로 조직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지능 창조체들이 진

as constituting the universe and the extrauniverse phenomena of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impersonal activities of the unified and co-ordinated Deity associations of supremacy, ultimacy, and infinity — the Trinity of Trinities.

56:9.6 (645.1) God the Father is discernible on all levels from the finite to the infinite, and though his creatures from Paradise to the evolutionary worlds have variously perceived him, only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know him as an infinity.

56:9.7 (645.2) Spiritual personality is absolute only on Paradise, and the concept of the Absolute is unqualified only in infinity. Deity presence is absolute only on Paradise, and the revelation of God must always be partial, relative, and progressive until his power becomes experientially infinite in the space potency of the Unqualified Absolute, while his personality manifestation becomes experientially infinite in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and while these two potentials of infinity become reality-unified in the Universal Absolute.

56:9.8 (645.3) But beyond subinfinite levels the three Absolutes are one, and thereby is infinity Deity-realized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der of existence ever self-realizes consciousness of infinity.

56:9.9 (645.4) Existential status in eternity implies existential self-consciousness of infinity, even though another eternity may be required to experience self-realization of the experiential potentialities inherent in an infinity eternity — an eternal infinity.

56:9.10 (645.5) And God the Father is the personal source of all manifestations of Deity and reality to all intelligent creatures and spirit beings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As personalities, now or in the successive universe experiences of the eternal future, no matter if you achieve the attainment of God the Sevenfold, comprehend God the Supreme, find God the Ultimate, or attempt to grasp the concept of God the Absolute, you will discover to your eternal satisfaction that in the consummation of each adventure you have, on new experiential levels, rediscovered the eternal God — the Paradise Father of all universe personalities.

56:9.11 (645.6) The Universal Father is the explanation of universal unity as it must be supremely, even ultimately, realized in the postultimate unity of absolute values and meanings — unqualified Reality.

56:9.12 (645.7) The Master Force Organizers go out into space and mobilize its energies to become gravity responsive to the Paradise pu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subsequently there come the Creator Sons, who organize these gravity-responding forces into inhabited universes and

화하여 그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을 그들 위에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모든 가능한 신성 속성들 안에서 아버지와 비슷하게 되어가면서 아버지에게로 상승하도록 한다.

우주에 두루 파라다이스 창조 무리의 끊임없고 확대하는 행진은 우주 아버지의 중력 지배의 언제까지나-확장하는 권역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앎으로써 그와 같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성취하고 하느님을 발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지능 창조체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끊임없는 증식의 전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들의 우주는 함께 통합되어 있다. 하느님은 힘과 개인성에 있어서 하나이다. 거기에는 모든 차원의 에너지와 모든 위상의 개인성이 조화-협동한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말해서,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 중심을 둔다. 하느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 속에 있으며,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제 10 장.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한 세계들이 최초 단계로부터 일곱 번째 신(新)시대로 진보하면, 그것들은 창조자 아들에 대한 찬미로부터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대한 경배에 이르기까지, 칠중 하느님의 실체의 실현을 연속적으로 이룩한다. 그러한 어떤 세계의 역사의 일곱 번째 단계가 계속되는 동안 계속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최극위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반면, 궁극자 하느님의 보호하는 사명활동의 실체를 막연하게 식별한다.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두루, 계속-진보하는 필사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신(神)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더욱 충만한 실현에 대한 추구이다. 이것은 마음과 물질 그리고 영으로 하느님을 식별하려는 사람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사자가 이것을 추구할 때, 그는 철학과 우주론 그리고 신성에 대한 체험적 연구 안에서 점점 더 자신을 발견한다.

너희는 철학을 파악하고, 경배와 사회적 봉사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 안에서 어느 정도 신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는 너무나 자주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조화우주론—를 사람의 조잡한 예술적 노력에 대한 연구에 국한시킨다. 아름다움, 예술은 주로 대조되는 것들에 대한 통일의 문제이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필수적이다. 최극의 아름다움, 유한한 예술의 절정은 창조자와 창조체라는 조화우주 양 극단의 광대함에 대한 통일의 드라마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과 하느님이 사람을 발견하는 것—창조체가 창조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최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의 지고한 달성, 조화우주 예술의 절정에 대한 달성이다.

therein evolve intelligent creatures who receive unto themselves the spirit of the Paradise Father and subsequently ascend to the Father to become like him in all possible divinity attributes.

56:9.13 (645.8) The ceaseless and expanding march of the Paradise creative forces through space seems to presage the ever-extending domain of the gravity grasp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never-ending multiplication of varied types of intelligent creatures who are able to love God and be loved by him, and who, by thus becoming God-knowing, may choose to be like him, may elect to attain Paradise and find God.

56:9.14 (646.1)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altogether unified. God is one in power and personality. There is co-ordination of all levels of energy and all phases of personality. Philosophically and experientially, in concept and in reality, all things and beings center in the Paradise Father. God is all and in all, and no things or beings exist without him.

10. TRUTH, BEAUTY, AND GOODNESS

56:10.1 (646.2) As the worlds settled in life and light progress from the initial stage to the seventh epoch, they successively grasp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God the Sevenfold, ranging from the adoration of the Creator Son to the worship of his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e continuing seventh stage of such a world's history the ever-progressing mortals grow in the knowledge of God the Supreme, while they vaguely discern the reality of the overshadowing ministry of God the Ultimate.

56:10.2 (646.3) Throughout this glorious age the chief pursuit of the ever-advancing mortals is the quest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a fuller realization of the comprehensible elements of Deity — truth, beauty, and goodness. This represents man's effort to discern God in mind, matter, and spirit. And as the mortal pursues this quest, he finds himself increasingly absorbed in the experiential study of philosophy, cosmology, and divinity.

56:10.3 (646.4) Philosophy you somewhat grasp, and divinity you comprehend in worship, social service, and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but the pursuit of beauty — cosmology — you all too often limit to the study of man's crude artistic endeavors. Beauty, art, is largely a matter of the unification of contrasts. Variety is essential to the concept of beauty. The supreme beauty, the height of finite art, is the drama of the unification of the vastness of the cosmic extremes of Creator and creature. Man finding God and God finding man — the creature becoming perfect as is the Creator — that is the supernal achievement of the supremely beautiful, the attainment of the apex of cosmic art.

따라서 물질주의, 무신론은 추함의 극대화, 아름다움에 대한 유한한 대립물의 극치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이진-실존하는 조화로운 실체로부터 태어나 있는, 다양성들에 대한 통일의 파노라마 안에 있다.

생각의 조화우주론적 차원에 대한 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호기심. 조화에 대한 배고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 화합하는 조화우주 관계들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

2. 심미적 감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실체의 모든 차원들에서의 모든 창조적 현시활동들의 예술적 접촉에 대한 계속-진보하는 깊은 감상.

3. 윤리 감수성.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상은 진리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존재들과 신(神)이 가지는 관계에서 신성한 선(善)의 인식을 촉발시키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적합하다는 감각을 느끼도록 인도한다. 그리하여 조화우주론마저도 신성한 실체 가치를 추구하도록—하느님-인식으로—인도한다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된 세계들은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이해와 매우 충분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질특성 가치들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들에 대한 신(神)의 계시를 포용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의 의미들은 필사자 사람의 지적 그리고 영적 본성들에게 어떤 병합된 호소를 한다. 우주적 아름다움은 조화우주 창조의 조화로운 관계들과 박자들을 포용 한다; 이것은 더욱 분명한 지적 호소가 되고 그리고 물질적 우주의, 통합되고 동조적 이해를 향하여 이끈다. 신성한 선(善)은 유한 마음에게 무한한 가치들의 계시를 대표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인간적 이해에서의 영적 차원의 바로 그 문턱까지 감지되고 높아진다.

진리는 과학과 철학의 기본이며, 종교의 지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예술, 음악 그리고 모든 인간 체험의 의미 가득한 리듬들을 후원한다. 선(善)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완전성-갈망자의 체험적인 것—의 감각을 포용한다.

아름다움의 실존은 진보하는 진화의 사실이 최극 마음의 지배임을 나타냄에 따라서 그만큼 확실하게, 깊이 이해하는 창조체 마음이 현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름다움은 현상적 실체의 멀리-퍼지는 다양성의 조화로운 시간-공간 합성에 대한 지적 인식이며, 그 모든 것이 선재(先在)하고 영원한 하나 됨에서 유래된다.

선(善)은 신성하고 완전한 수많은 차원에서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정신적 인식이다. 선(善)을 인식한다는 것은 도덕적 상태의 마음, 선(善)과 악(惡)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 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선함의 소유, 곧 위대함의 소유는 실제

56:10.4 (646.5) Hence materialism, atheism, is the maximization of ugliness, the climax of the finite antithesis of the beautiful. Highest beauty consists in the panorama of the unification of the variations which have been born of pre-existent harmonious reality.

56:10.5 (646.6) The attainment of cosmologic levels of thought includes:

56:10.6 (646.7) 1. *Curiosity*. Hunger for harmony and thirst for beauty. Persistent attempts to discover new levels of harmonious cosmic relationships.

56:10.7 (646.8) 2. *Aesthetic appreciation*. Love of the beautiful and ever-advancing appreciation of the artistic touch of all creative manifestations on all levels of reality.

56:10.8 (646.9) 3. *Ethic sensitivi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ruth the appreciation of beauty leads to the sense of the eternal fitness of those things which impinge upon the recognition of divine goodness in Deity relations with all beings; and thus even cosmology leads to the pursuit of divine reality values — to God-consciousness.

56:10.9 (646.10)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are so fully concerned with the comprehens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because these quality values embrace the revelation of Deity to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The meanings of eternal truth make a combined appeal to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natures of mortal man. Universal beauty embraces the harmonious relations and rhythms of the cosmic creation; this is more distinctly the intellectual appeal and leads towards unified and synchronous comprehension of the material universe. Divine goodness represents the revelation of infinite values to the finite mind, therein to be perceived and elevated to the very threshold of the spiritual level of human comprehension.

56:10.10 (647.1) Truth is the basis of science and philosophy, present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religion. Beauty sponsors art, music, and the meaningful rhythms of all human experience. Goodness embraces the sense of ethics, morality, and religion — experiential perfection-hunger.

56:10.11 (647.2) The existence of beauty implies the presence of appreciative creature mind just as certainly as the fact of progressive evolution indicates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Mind. Beauty is the intellectual recognition of the harmonious time-space synthesis of the far-flung diversification of phenomenal reality, all of which stems from pre-existent and eternal oneness.

56:10.12 (647.3) Goodness is the mental recognition of the relative values of the diverse levels of divine perfection. The recognition of goodness implies a mind of moral status, a personal mind with ability to discriminate between good and evil. But the

적 신성 달성에 대한 척도이다.

참된 관계의 인지는 진리와 실수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마음을 암시한다. 유란시아의 인간 마음들에게 투입된, 증여자 진리의 영은 반드시 진리—하느님을 향한 영원한 상승에서 그들이 조화-협동되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의 살아있는 영 관계—에 대해 반응한다.

모든 전자(電子), 생각, 또는 영의 모든 충동은 전체 우주 안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오로지 죄가, 정신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저항하는, 고립되고 그리고 악한 중력이다. 우주는 하나의 전체이다; 고립해서 존재하거나 살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자아-실현은 그것이 반(反)사회적일 때 잠재적으로 악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 살지 못한다." 는 말은 말 그대로 진실이다. 조화우주 사회화는 개인성 통일의 최고 형태를 이룬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너희 중에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조차도—마음과 물질 그리고 영의 우주에 대한 사람의 지적 접근도—어떤 신성하고도 최극의 이상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병합되어야만 한다. 필사자 개인성이 인간 체험을 물질, 마음 그리고 영과 통합하듯이, 이 신성하고 최극의 이상은 최극위 안에서 힘-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개인성구현 된다.

어떤 주어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모든 통찰은 그 전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납득을 요구한다; 우주 안에서 이것은 창조적 전체에 대한 창조된 부분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神)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달성의 초월적인, 심지어는 무한한 목표가 된다.

우주적 아름다움은 물질적 창조 안에서 파라다이스 섬의 반영을 감지하는 것인 반면, 영원한 진리는 필사 종족들에게 자신들을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진리의 영을 부여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특별한 사명활동들이다. 신성한 선(善)은 무한한 영의 갖가지 개인성들의 사랑스러운 사명활동에서 더욱 충분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세 본질특성들의 전체 총체인 사랑은 사람이 그의 영 아버지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물리적 물질은 절대적 신(神)들의 파라다이스 에너지-빛남의 시간-공간 그림자이다. 진리 의미들은 신(神)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필사자-지성 반향들—최극 개념들에 대한 시간-공간 이해이다. 신성의 선함의 가치들은 진화 세계들의 시간-공간 유한 창조체들에 대한 우주자, 영원자, 그리고 무한자의 영 개인성들의 자비로운 사명활동들이다.

의미 있는 신성의 이 실체 가치들은 신성한 사랑으로서 각각의 개인적 창조체와의 아버지의

possession of goodness, greatness, is the measure of real divinity attainment.

56:10.13 (647.4) The recognition of true relations implies a mind competent to discriminate between truth and error. The bestowal Spirit of Truth which invests the human minds of Urantia is unerringly responsive to truth — the living spirit relationship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as they are co-ordinated in the eternal ascent Godward.

56:10.14 (647.5) Every impulse of every electron, thought, or spirit is an acting unit in the whole universe. Only sin is isolated and evil gravity resisting on the mental and spiritual levels. The universe is a whole; no thing or being exists or lives in isolation. Self-realization is potentially evil if it is antisocial. It is literally true: "No man lives by himself." Cosmic socialization constitutes the highest form of personality unification. Said Jesus: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let him become server of all."

56:10.15 (647.6) Even truth, beauty, and goodness — man's intellectual approach to the universe of mind, matter, and spirit — must be combined into one unified concept of a divine and supreme ideal. As mortal personality unifies the human experience with matter, mind, and spirit, so does this divine and supreme ideal become power-unified in Supremacy and then personalized as a God of fatherly love.

56:10.16 (647.7) All insight into the relations of the parts to any given whole requires an understanding grasp of the relation of all parts to that whole; and in the universe this means the relation of created parts to the Creative Whole. Deity thus becomes the transcendental, even the infinite, goal of universal and eternal attainment.

56:10.17 (647.8) Universal beauty is the recognition of the reflection of the Isle of Paradise in the material creation, while eternal truth is the special ministry of the Paradise Sons who not only bestow themselves upon the mortal races but even pour out their Spirit of Truth upon all peoples. Divine goodness is more fully shown forth in the loving ministry of the manifold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But love, the sum total of these three qualities, is man's perception of God as his spirit Father.

56:10.18 (648.1) Physical matter is the time-space shadow of the Paradise energy-shining of the absolute Deities. Truth meanings are the mortal-intellect repercussions of the eternal word of Deity — the time-space comprehension of supreme concepts. The goodness values of divinity are the merciful ministries of the spirit personalities of the Universal, the Eternal, and the Infinite to the time-space finit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spheres.

56:10.19 (648.2) These meaningful reality values of divinity are blended in the Father's relation with

관계 속에 혼합되어 있다. 그들은 신성한 자비로서 아들과 그의 아들들 속에 조화-협동되어 있다. 그들은 영과 그의 영 자녀들을 통하여 신성한 사명활동으로서 그들의 본질특성들, 시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자비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다. 이 세 신성들은 힘-개인성 합성으로서 최극존재에 의해 우선적으로 현시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일곱 차원들에서 신성한 의미들과 가치의 서로 다른 일곱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칠중 하느님에 의해 다양하게 보인다.

유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은 신성 실체의 전체 계시를 포용한다. 신(神)의 이 사랑-이해가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표현을 찾을 때, 이것들은 신성의 열매들: 지적 평화, 사회적 진보, 도덕적 만족, 영적 기쁨, 그리고 조화우주 지혜를 맺는다. 빛과 생명의 일곱 번째 단계에 있는 어떤 세계의 진보된 필사자들은 사랑이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이미 배웠다—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네바돈 계시 무리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인 어떤 특정의 멜기세덱과 협력하여, 유란시아를 방문 중인 어느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우주적 합일에 대한 이 글은 다양한 저자들에게 의한 일련의 글들 중 25번째이며, 만투시아 멜기세덱의 지도아래에서 활동하는 12 숫자를 이루는 네바돈 개인성 위원회에 의해 한 집단으로서 후원되었다. 우리가 우리들의 상급자들로부터 허가된 기법에 따라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1934년에 이들 이야기를 구술하였고 그것들을 영어 언어로 기록하였다.

each personal creature as divine love. They are co-ordinated in the Son and his Sons as divine mercy. They manifest their qualities through the Spirit and his spirit children as divine ministry, the portrayal of loving mercy to the children of time. These three divinities are primarily manifested by the Supreme Being as power-personality synthesis. They are variously shown forth by God the Sevenfold in seven differing associations of divine meanings and values on seven ascending levels.

56:10.20 (648.3) To finite man truth, beauty, and goodness embrace the full revelation of divinity reality. As this love-comprehension of Deity finds spiritual expression in the lives of God-knowing mortals, there are yielded the fruits of divinity: intellectual peace, social progress, moral satisfaction, spiritual joy, and cosmic wisdom. The advanced mortals on a world in the seventh stage of light and life have learned that love is the greatest thing in the universe — and they know that God is love.

56:10.21 (648.4) Love is the desire to do good to others.

56:10.22 (648.5) [Presented by a Mighty Messenger visiting on Urantia, by request of the Nebadon Revelatory Corps and in collaboration with a certain Melchizedek,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56:10.23 (648.6) This paper on Universal Unity is the twenty-fifth of a series of presentations by various authors, having been sponsored as a group by a commission of Nebadon personalities numbering twelve and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Mantutia Melchizedek. We indited these narratives and put them in the English language, by a technique authorized by our superiors, in the year 1934 of Urantia time.

유랜시아 책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57 편 유란시아의 기원(起源)

⇨ 056

유란시아 책

058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57 편 유란시아의 기원(起源)

섹션

소개

제 1 장. 안드로노버 성운

제 2 장. 제 1차 성운 단계

제 3 장. 제 2차 성운 단계

제 4 장. 제 3차와 제 4차 단계

제 5 장. 몬마시아의 기원—유란시아 태양계

제 6 장.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제 7 장.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원시 행성 환경

제 8 장. 지구 표면의 안정 지진 활동기 바다와 최초의 대륙 세상

PAPER 57

THE ORIGIN OF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ndronover Nebula

2. The Primary Nebular Stage

3. The Secondary Nebular Stage

4. Tertiary and Quartan Stages

5. Origin of Monmatia — The Urantia Solar System

6. The Solar System Stage — The Planet-Forming Era

7. The Meteoric Era — The Volcanic Age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8. Crustal Stabilization

The Age of Earthquakes

The World Ocean and the First Continent

소개

유란시아의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위해 예루셈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부터 인용하여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법—365일을 한 해로 정하여 윤년을 두는 달력—으로 시간을 환산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기록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년 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전체 숫자들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백만 년 또는 이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연대인 20세기 초반으로부터 숫자를 정하여 사건의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 백만 년, 그리고 10억 년의 균등한 기간에 발생한 먼 옛날의 사건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INTRODUCTION

57:0.1 (651.1) IN PRESENTING excerpts from the archives of Jerusem for the records of Urantia respecting its antecedents and early history, we are directed to reckon time in terms of current usage — the present leap-year calendar of 365¼ days to the year. As a rule, no attempt will be made to give exact years, though they are of record. We will use the nearest whole numbers as the better method of presenting these historic facts.

57:0.2 (651.2) When referring to an event as of one or two millions of years ago, we intend to date such an occurrence back that number of years from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of the Christian era. We will thus depict these far-distant events as occurring in even periods of thousands, m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제 1 장. 안드로노버 성운

유란시아는 너희의 태양으로부터 기원되었으며, 너희의 태양은 안드로노버 성운으로부터 산출된 가지각색의 태양들 중의 하나인데, 한 때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의 물리적 힘과 물질적 질료(質料)의 구성 요소들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성운 자체는 까마득한 옛날에 오르본톤이라는 초우주 속에 있는 공간의 우주 기세-충전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당시에, 파라다이스에 있는 1차 주(主)기세 조직자들은 나중에 안드로노버 성운으로 조직된 공간적 에너지들을 오랫동안 충분히 통제해 오고 있었다.

987,000,000,000년 전에 연관-동료 기세 조직자 그리고 그 후에는 오르본톤 계열의 811,307번 대리 검열자가 유버사로부터 시찰을 나왔으며, 이제 오르본톤의 동쪽 부분에 있는 특정 구역에서 물질적인 현상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공간 상태가 되었음을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 보고하였다.

900,000,000,000년 전에, 유버사의 자료들이 증언되었고, 811,307번 검열자에 의해 그 전에 선정된 지역으로 초우주 정부가 기세 조직자와 참모진을 보낼 수 있는 위임권과 관련하여, 평형을 관장하는 유버사 의회로부터 받은 허락이 그곳에 기록되었다. 오르본톤의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적 창조를 계획하도록 소집하라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적인 우주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허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기세 조직자와 참모가 이미 유버사를 출발하여, 오르본톤 안에 새로운 물리적 창조의 창발 속에서 종결시킬 지도 모르는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들 속에 후에 가담하게 될 동쪽 공간 부분으로 그들이 여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875,000,000,000년 전에, 876,926번의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이 정식으로 생겨났다. 결국에는 이 광대한 공간의 회오리바람으로 확대될 이 에너지 소용돌이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기세 조직자와 연락참모의 현존뿐이었다. 그러한 성운의 회전이 시작된 후에, 살아있는 기세 조직자들은 회전 판 표면의 오른 편으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되며, 이 시간 이후로는 에너지의 선천적인 본질특성들이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물리적 체계를 진보적으로 질서 있게 진화시키게 되어 있다.

이 무렵부터 이야기는 초우주 개인성들의 기능 활동으로 옮겨진다. 실체 안에서 그 사건의 진정한 시작은 이 시점—파라다이스에서 기세 조직자들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힘 지도자들과 물리 통제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에너지

1. THE ANDRONOVER NEBULA

57.1.1 (651.3) Urantia is of origin in your sun, and your sun is one of the multifarious offspring of the Andronover nebula, which was onetime organized as a component part of the physical power and material matter of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nd this great nebula itself took origin in the universal force-charge of space in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long, long ago.

57.1.2 (651.4)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is recital, the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s of Paradise had long been in full control of the space-energies which were later organized as the Andronover nebula.

57.1.3 (651.5) 987,000,000,000 years ago associate force organizer and then acting inspector number 811,307 of the Orvonton series, traveling out from Uversa, reported to the Ancients of Days that space conditions were favorable for the initiation of materialization phenomena in a certain sector of the, then, easterly segment of Orvonton.

57.1.4 (651.6) 900,000,000,000 years ago, the Uversa archives testify, there was recorded a permit issued by the Uversa Council of Equilibrium to the superuniverse government authorizing the dispatch of a force organizer and staff to the region previously designated by inspector number 811,307. The Orvonton authorities commissioned the original discoverer of this potential universe to execute the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calling for the organization of a new material creation.

57.1.5 (652.1) The recording of this permit signifies that the force organizer and staff had already departed from Uversa on the long journey to that easterly space sector where they were subsequently to engage in those protracted activities which would terminate in the emergence of a new physical creation in Orvonton.

57.1.6 (652.2) 875,000,000,000 years ago the enormous Andronover nebula number 876,926 was duly initiated. Only the presence of the force organizer and the liaison staff was required to inaugurate the energy whirl which eventually grew into this vast cyclone of space. Subsequent to the initiation of such nebular revolutions, the living force organizers simply withdraw at right angles to the plane of the revolutionary disk, and from that time forward, the inherent qualities of energy insure the progressive and orderly evolution of such a new physical system.

57.1.7 (652.3) At about this time the narrative shifts to the functioning of the personalities of the superuniverse. In reality the story has its proper beginning at this point — at just about the time the Paradise force organizers are preparing to

상태들을 조성하면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이다.

withdraw, having made the space-energy conditions ready for the action of the power directors and physical controll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제 2 장. 제 1차 성운 단계

모든 진화적인 물질적 창조계들은 회전하는 기체상태의 성운으로부터 탄생되며, 그러한 1차 성운은 기체 상태의 초기 부분에 내내 둥그렇다. 그것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형을 이루게 되며, 태양이 조성되는 기능이 자연적인 경로를 걷게 되면, 그것들은 대개 별들의 집합으로 귀착 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숫자의 행성들과 위성들 그리고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와 여러모로 흡사한 작은 군(群)들에 의해 둘러싸인 수많은 태양들로 변화된다.

8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창조는 오르본톤의 거대한 1차 성운들 중의 하나로 잘 조성되었다. 근처에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았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근접된 곳에서 창조들에게 적용된 중력 추정치들은, 공간 속에서 물질로 굳어지는 일들이 안드로노버 구역에서 발생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7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체계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속한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물질 체계의 힘 중심들에 협력을 공급하고 지원을 잘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아홉 개의 물질 창조계 구역으로 물리통제자들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이러한 아득히 먼 옛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조계들에게 전달된 모든 물질들은 바퀴모양의 이러한 거대한 공간적 띠의 한계 속에 가두어져 있었으며, 그 띠는 계속하여 소용돌이치다가, 최대 직경에 도달하게 되면 더욱 빨리 회전하여 응집되고 수축되었다.

6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에너지-동원이 최고점에 달하는 기간이 되었다; 성운은 최대 부피에 도달하였다. 이 때 성운은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기체 구름이었다. 이 시기는 차별적인 질량 형성과 변화하는 회전 속도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였다. 공간적인 기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변화함에 있어서 중력을 비롯한 다른 작용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제 2차 성운 단계

이제는 거대한 성운이 점차 나선형의 소용돌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멀리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식별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운의 자연적인 역사이다;

2. THE PRIMARY NEBULAR STAGE

57:2.1 (652.4) All evolutionary material creations are born of circular and gaseous nebulae, and all such primary nebulae are circular throughout the early part of their gaseous existence. As they grow older, they usually become spiral, and when their function of sun formation has run its course, they often terminate as clusters of stars or as enormous suns surrounded by a varying number of planets, satellites, and smaller groups of matter in many ways resembling your own diminutive solar system.

57:2.2 (652.5) 8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creation was well established as one of the magnificent primary nebulae of Orvonton. As the astronomers of near-by universes looked out upon this phenomenon of space, they saw very little to attract their attention. Gravity estimates made in adjacent creations indicated that space materializations were taking place in the Andronover regions, but that was all.

57:2.3 (652.6) 7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system was assuming gigantic proportions, and additional physical controllers were dispatched to nine surrounding material creations to afford support and supply co-operation to the power centers of this new material system which was so rapidly evolving. At this distant date all of the material bequeathed to the subsequent creations was held within the confines of this gigantic space wheel, which continued ever to whirl and, after reaching its maximum of diameter, to whirl faster and faster as it continued to condense and contract.

57:2.4 (652.7) 600,000,000,000 years ago the height of the Andronover energy-mobilization period was attained; the nebula had acquired its maximum of mass. At this time it was a gigantic circular gas cloud in shape somewhat like a flattened spheroid. This was the early period of differential mass formation and varying revolutionary velocity. Gravity and other influences were about to begin their work of converting space gases into organized matter.

3. THE SECONDARY NEBULAR STAGE

57:3.1 (653.1) The enormous nebula now began gradually to assume the spiral form and to become clearly visible to the astronomers of even distant universes. This is the natural history of

태양을 내 던지고 우주 구축 작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러한 2차 공간 성운들이 대개 소용돌이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 일이 있던 아주 먼 옛날에, 가까이 있는 별 연구자들이 관찰한 이러한 안드로노버 성운의 변형은,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의 방향을 우주 밖으로 돌리고 가까이 있는 외부에서 현재 소용돌이치고 있는 성운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최대 질량에 도달되었을 즈음에, 기체 상태인 내용물의 중력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체 누출 단계, 두 개의 거대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팔처럼 앞으로 뻗어 나가는 기체 유출이 발생되었으며, 기체 유출은 모체가 되는 큰 덩어리의 반대편에서 기원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중앙 핵심부의 빠른 회전은 돌출 된 두 개의 투사되는 기체 기둥에게 곧 소용돌이치는 모양이 되게 하였다. 뻗어나가는 이 기둥들 일부분이 냉각된 후에 응고됨으로써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농축된 부분들은 거대한 체계들을 이루었고, 본체가 되는 바퀴 모양의 중력 작용 속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으면서 성운의 기체 구름 한 가운데에 있는 공간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물질들의 보조적 체계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운은 이미 수축되기 시작하였고,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중력 통제가 감소되었다; 머지않아서, 기체상태의 바깥쪽 구역들이 성운의 핵심에 긴밀하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재적으로 이탈되기 시작하였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그리는 순환회로들 위의 공간 속으로 옮겨갔으며, 그것들의 순환회로를 다 완료하기까지 핵심 구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러한 운동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운이 진보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하여 증가되는 회전 속도는 곧 서로 독립적인 순환회로를 갖는 무수한 태양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멀고 먼 옛날에 이상과 같은 일이 안드로노버에서 일어났었다. 바퀴 모양의 에너지 영역은 최대한의 확대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커졌고, 그러고 나서 응축 과정이 시작될 때, 그것은 점점 더 빨리 소용돌이를 쳤으며 결국에는 결정적인 원심 분리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엄청난 분산이 시작되었다.

500,000,000,000년 전에, 최초의 안드로노버 태양이 탄생되었다. 타는 듯 한 이 광채는 모체 중력 장악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창조의 조화우주 안에서 독립적인 모험여행에 있는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의 궤도는 이탈된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한 젊은 태양들은 재빨리 구체 모양으로 되어가며, 공간의 별로서 길고도 사건 많은 생애를 시작한다. 말기에 도달한 성운 핵들을 제외하고, 오르본톤의 거의 대부분 태양들이 모두 비슷한 탄생을 가지고 있다. 이탈된 이들 태양들은 진화의 다양한 기간과 이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우주적 봉사를 두루 거친다.

most nebulae; before they begin to throw off suns and start upon the work of universe building, these secondary space nebulae are usually observed as *spiral phenomena*.

57:3.2 (653.2) The near-by star students of that faraway era, as they observed this metamorphosis of the Andronover nebula, saw exactly what twentieth-century astronomers see when they turn their telescopes spaceward and view the present-age spiral nebulae of adjacent outer space.

57:3.3 (653.3) About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the maximum of mass, the gravity control of the gaseous content commenced to weaken, and there ensued the stage of gas escapement, the gas streaming forth as two gigantic and distinct arms, which took origin on opposite sides of the mother mass. The rapid revolutions of this enormous central core soon imparted a spiral appearance to these two projecting gas streams. The cooling and subsequent condensation of portions of these protruding arms eventually produced their knotted appearance. These denser portions were vast systems and subsystems of physical matter whirling through space in the midst of the gaseous cloud of the nebula while being held securely within the gravity grasp of the mother wheel.

57:3.4 (653.4) But the nebula had begun to contract, and the increase in the rate of revolution further lessened gravity control; and ere long, the outer gaseous regions began actually to escape from the immediate embrace of the nebular nucleus, passing out into space on circuits of irregular outline, returning to the nuclear regions to complete their circuits, and so on. But this was only a temporary stage of nebular progression. The ever-increasing rate of whirling was soon to throw enormous suns off into space on independent circuits.

57:3.5 (653.5) And this is what happened in Andronover ages upon ages ago. The energy wheel grew and grew until it attained its maximum of expansion, and then, when contraction set in, it whirled on faster and faster until, eventually, the critical centrifugal stage was reached and the great breakup began.

57:3.6 (653.6) 500,000,000,000 years ago the first Andronover sun was born. This blazing streak broke away from the mother gravity grasp and tore out into space on an independent adventure in the cosmos of creation. Its orbit was determined by its path of escape. Such young suns quickly become spherical and start out on their long and eventful careers as the stars of space. Excepting terminal nebular nucleuses, the vast majority of Orvonton suns have had an analogous birth. These escaping suns pass through varied periods of evolution and subsequent universe service.

4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성운의 재(再)흡수 기간이 시작되었다. 모체 핵의 단계적인 커짐과 계속되는 응축의 결과로써 가까이에 있는 보다 작은 많은 태양들이 흡수되었다. 곧 이어서 성운 응축이 끝나는 위상, 에너지와 물질이 거대한 공간적 집단들을 이루는 최종적인 분리 단계보다 항상 앞서서 일어나는 기간이 시작되었다.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를 건설하는 자신의 모험 장소로, 집대성-해체하고 있는 이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 신(新)시대로부터 백만 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구원자별의 고안건축 세계들과, 행성들에 대한 100개의 별자리 본부들 집단들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특별하게 창조된 세계들로 묶여진 이들 군(群)들이 완성되는 데에는 거의 백만 년이 소요되었다. 지역 체계의 본부들이 있는 행성들은 그 때부터 약 50억 년 전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걸쳐서 건설되었다.

3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태양 순환회로들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성운 체계는 물리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는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미가엘의 참모진이 구원자별에 도착하였고, 오르본톤에 있는 유버사 정부는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에 대한 물리적인 인식을 확장하였다.

20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중앙 군(群) 혹은 핵심 덩어리 속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서 수축과 응집 과정의 진행이 목격되었다. 중앙에 있는 바퀴 모양의 태양-모체 가까이에 있는 영역에 상대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외부 영역들은 보다 안정되고 잘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새로 태어난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행성들은 생명이 이식되기에 적당할 만큼 이미 충분히 냉각되었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행성이 이들 시기에 생겼다.

이제 네바돈의 완성된 우주적 기능구조가 처음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미가엘의 창조는 거주하는 곳 그리고 진보적인 필사자 상승의 우주로서 유버사에 등록되었다.

100,000,000,000년 전에, 성운의 응축 긴장이 극점에 도달하였다; 열에 의한 긴장도 최대 점에 도달하였다. 중력과 열이 대립되는 결정적인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열이 중력을 이기게 되고 태양이 발광되기 시작하는 눈부신 장면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우주 성운의 제 2차 생애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57:3.7 (653.7) 400,000,000,000 years ago began the recaptive period of the Andronover nebula. Many of the near-by and smaller suns were recaptured as a result of the gradual enlargement and further condensation of the mother nucleus. Very soon there was inaugurated the terminal phase of nebular condensation, the period which always precedes the final segregation of these immense space aggregations of energy and matter.

57:3.8 (654.1) It was scarcely a million years subsequent to this epoch that Michael of Nebadon, a Creator Son of Paradise, selected this disintegrating nebula as the site of his adventure in universe building. Almost immediately the architectural worlds of Salvington and the one hundred constellation headquarters groups of planets were begun. It required almost one million years to complete these clusters of specially created worlds. The local system headquarters planets were constructed over a period extending from that time to about five billion years ago.

57:3.9 (654.2) 300,000,000,000 years ago the Andronover solar circuits were well established, and the nebular system was passing through a transient period of relative physical stability. About this time the staff of Michael arrived on Salvington, and the Uversa government of Orvonton extended physical recognition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57:3.10 (654.3) 200,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progression of contraction and condensation with enormous heat generation in the Andronover central cluster, or nuclear mass. Relative space appeared even in the regions near the central mother-sun wheel. The outer regions were becoming more stabilized and better organized; some planets revolving around the newborn suns had cooled sufficiently to be suitable for life implantation. The oldest inhabited planets of Nebadon date from these times.

57:3.11 (654.4) Now the completed universe mechanism of Nebadon first begins to function, and Michael's creation is registered on Uversa as a universe of inhabitation and progressive mortal ascension.

57:3.12 (654.5) 100,000,000,000 years ago the nebular apex of condensation tension was reached; the point of maximum heat tension was attained. This critical stage of gravity-heat contention sometimes lasts for ages, but sooner or later, heat wins the struggle with gravity, and the spectacular period of sun dispersion begins. And this marks the end of the secondary career of a space nebula.

제 4 장. 제 3차와 제 4차 단계

4. TERTIARY AND QUARTAN STAGES

성운은 제 1차에는 회전하고; 제 2차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제 3차에는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있는 반면에, 제 4차에는 근원적인 핵이 구형 성단으로 종결되든지, 아니면 말기를 맞이한 태양 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고립된 태양으로 종결되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태양 발광 주기가 포함된다.

75,000,000,000년 전에, 이 성운은 태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단계의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는 태양이 감소되는 첫 기간의 정점에 해당되었다. 이 태양들의 대부분은 그 후로 행성들, 위성들, 광선을 반영하지 않는 우주 섬들, 혜성들, 그리고 조화우주 먼지 구름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50,000,000,000년 전에, 첫 번째 단계의 태양 분산이 완료되었다; 성운은 실존에서의 스스로의 3차 주기를 신속하게 완결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876,926개 태양계들에게 기원을 주었다.

25,000,000,000년 전에, 성운 삶의 제 3차가 완료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모체가 되는 이 성운으로부터 발생된 멀리 퍼져나가는 성운들의 상대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물리적인 응축과 열 발생 증가의 과정은 성운 잔존물들의 중앙 물질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었다.

10,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의 제 4차 순환주기가 시작되었다. 핵심-덩어리 온도가 최고점에 달하였다; 응축 과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기원적인 모체 핵은 자체의 내부-열 응축 긴장과, 둘러싸고 있는 독립된 태양계들로 인하여 증가되는 중력-조수 작용의 혼합된 압력 아래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성운 태양 주기를 시작하게 하는 핵심의 분출이 임박하게 되었다. 성운 실존의 제 4차 순환주기가 바야흐로 시작되려 했다.

8,000,000,000년 전에, 엄청난 말기적 폭발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조화우주 격변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오직 외부에 있는 체계들만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최종적인 태양 분출은 거의 20억년 동안 계속되었다.

7,000,000,000년 전에, 안드로노버 말기 분산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보다 큰 말기적 태양들이 생겨나는 기간이었으며 지역적 물리적 교란이 최고 상태에 이른 기간이었다.

6,000,000,000년 전에, 말기 분산이 종료되었고, 너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생겨났으며, 안드로노버의 두 번째 태양 군(群)의 끝에서 56번째로 탄생되었다. 성운 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출되면서, 136,702개의 태양들이 생성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고적하게 궤도를 운행한다.

57.4.1 (654.6) The primary stage of a nebula is circular; the secondary, spiral; the tertiary stage is that of the first sun dispersion, while the quartan embraces the second and last cycle of sun dispersion, with the mother nucleus ending either as a globular cluster or as a solitary sun functioning as the center of a terminal solar system.

57.4.2 (654.7) 75,000,000,000 years ago this nebula had attained the height of its sun-family stage. This was the apex of the first period of sun losses. The majority of these suns have since possessed themselves of extensive systems of planets, satellites, dark islands, comets, meteors, and cosmic dust clouds.

57.4.3 (654.8) 50,000,000,000 years ago this first period of sun dispersion was completed; the nebula was fast finishing its tertiary cycle of existence, during which it gave origin to 876,926 sun systems.

57.4.4 (654.9) 25,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completion of the tertiary cycle of nebular life and brought about the organization and relative stabilization of the far-flung starry systems derived from this parent nebula. But the process of physical contraction and increased heat production continued in the central mass of the nebular remnant.

57.4.5 (655.1) 10,000,000,000 years ago the quartan cycle of Andronover began. The maximum of nuclear-mass temperature had been attained; the critical point of condensation was approaching. The original mother nucleus was convulsing under the combined pressure of its own internal-heat condensation tension and the increasing gravity-tidal pull of the surrounding swarm of liberated sun systems. The nuclear eruptions which were to inaugurate the second nebular sun cycle were imminent. The quartan cycle of nebular existence was about to begin.

57.4.6 (655.2) 8,000,000,000 years ago the terrific terminal eruption began. Only the outer systems are safe at the time of such a cosmic upheaval.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nebula. This final sun disgorgement extended over a period of almost two billion years.

57.4.7 (655.3) 7,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height of the Andronover terminal breakup. This was the period of the birth of the larger terminal suns and the apex of the local physical disturbances.

57.4.8 (655.4) 6,000,000,000 years ago marks the end of the terminal breakup and the birth of your sun, the fifty-sixth from the last of the Andronover second solar family. This final eruption of the nebular nucleus gave birth to 136,702 suns, most of them solitary orbs. The total number of suns

안드로노버 성운에서 기원된 태양들과 태양계들의 수는 1,013,628개이다. 태양계를 갖고 있는 태양의 숫자는 1,013,572개이다.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안드로노버 성운은 더 이상 없으나, 공간의 이 어머니 구름 안에서 기원된 많은 태양과 그들의 행성 가족 위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거대한 성운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핵심 부분은 붉은 빛을 내면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빛의 거물의 막강한 두 세대의 이 장엄한 어머니 주변을 지금도 회전하고 있는, 165개 세계의 나머지 행성가족에게 누그러진 빛과 열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 5 장. 몬마시아의 기원—유란시아 태양계

5,000,000,000년 전에, 너희 태양계의 태양이 비교적 독립적인 불타는 구체를 이루었으며, 가까이 있는 공간에서 돌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 자기 자신의 생성에 기여하였던 마지막 격변으로 부터의 잔여물들이 자기에게 모이도록 하였다.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은 오늘날 상대적인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11.5년 주기의 태양 흑점은 그것이 청년기에 있는 가변성의 별임을 나타내 준다. 너희 태양은 초기에는 계속 응축하였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그 표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거대한 융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밝기 변화 주기는 3.5일이었다. 이러한 가변 상태, 주기적인 변동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부닥치게 될 특정한 외부 영향들에게 아주 잘 반응하도록 하였다.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의 행성 군(群),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속된 태양계의 이름인 몬마시아의 독특한 기원을 위하여 준비된 지역 공간의 무대는 그렇게 설치되었다. 오르본톤에 소속된 행성 체계들 중에서 비슷한 기원을 갖는 것들은 1% 미만이다.

4,500,000,000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독립된 이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난게 큰 이 체계의 중심은 거대한 암흑 공간이고, 견고한 상태이며, 심하게 충전(充電)되어 있고, 엄청난 중력이 작용되고 있었다.

앙고나가 태양으로 더 접근하여, 태양이 진동하면서 최고로 확대되는 순간, 기체 상태의 물질적 기둥들이 태양의 거대한 허처럼 우주 밖으로 분출되었다. 처음에는 혀 모양으로 불타는 이 기체 기둥들이 반드시 태양 쪽으로 되돌아갔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접근하자, 거대한 방문객의 중력 작용이 너무 커져서 혀 모양의 이 기체 기둥들이 어떤 지점까지 떨어져 나갔으며, 뿌리 부분은 태양으로 되돌아갔지만 바깥 부분은 물체의 독립된 몸체, 태양계의 운석들을 형성할 만큼 떨어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자체적인 타원 궤도를

and sun systems having origin in the Andronover nebula was 1,013,628. The number of the solar system sun is 1,013,572.

57:4.9 (655.5) And now the great Andronover nebula is no more, but it lives on in the many suns and their planetary families which originated in this mother cloud of space. The final nuclear remnant of this magnificent nebula still burns with a reddish glow and continues to give forth moderate light and heat to its remnant planetary family of one hundred and sixty-five worlds, which now revolve about this venerable mother of two mighty generations of the monarchs of light.

5. ORIGIN OF MONMATIA — THE URANTIA SOLAR SYSTEM

57:5.1 (655.6) 5,000,000,000 years ago your sun was a comparatively isolated blazing orb, having gathered to itself most of the near-by circulating matter of space, remnants of the recent upheaval which attended its own birth.

57:5.2 (655.7) Today, your sun has achieved relative stability, but its eleven and one-half year sunspot cycles betray that it was a variable star in its youth. In the early days of your sun the continued contraction and consequent gradual increase of temperature initiated tremendous convulsions on its surface. These titanic heaves required three and one-half days to complete a cycle of varying brightness. This variable state, this periodic pulsation, rendered your sun highly responsive to certain outside influences which were to be shortly encountered.

57:5.3 (655.8) Thus was the stage of local space set for the unique origin of *Monmatia*, that being the name of your sun's planetary family, the solar system to which your world belongs. Less than one per cent of the planetary systems of Orvonton have had a similar origin.

57:5.4 (655.9) 4,500,000,000 years ago the enormous Angona system began its approach to the neighborhood of this solitary sun. The center of this great system was a dark giant of space, solid, highly charged, and possessing tremendous gravity pull.

57:5.5 (656.1) As Angona more closely approached the sun, at moments of maximum expansion during solar pulsations, streams of gaseous material were shot out into space as gigantic solar tongues. At first these flaming gas tongues would invariably fall back into the sun, but as Angona drew nearer and nearer, the gravity pull of the gigantic visitor became so great that these tongues of gas would break off at certain points, the roots falling back into the sun while the outer sections would become detached to form

그리면서 즉시 태양의 주위를 돌기 시작하였다.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태양의 분출은 더욱 심화되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 공간에서 맴도는 독립적 몸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앙고나가 태양에 가장 근접되게 접근할 때까지 500,000년 동안 계속 발전되었다; 태양은 그 후에 주기적인 내부 격변들 중의 하나로 인하여, 부분적인 분열을 체험하였다;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질이 분출되었다. 앙고나가 있는 쪽에서는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태양 기체들이 분출되었고, 오히려 양 끝을 향하였으며 가운데는 현저하게 부풀어 올랐고, 태양의 직계 중력 통제 한계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태양으로부터 분리된 거대한 기둥 모양의 태양 기체는 후에 태양계에 속한 12개의 행성들로 진화되었다. 태양계를 이룩한 거대한 원형체의 분출에 조수적인 공감으로 반대편에서 일어난 반향적인 가스 유출은 태양계의 우주 먼지와 운석으로 응축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물체의 매우 많은 부분은 후에 앙고나 체계가 멀리 있는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 태양의 중력에 다시 흡입되었다.

소행성들과 운석들로서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양의 물질과 태양계 행성들의 조상이 되는 물질을 앙고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태양계의 물질 중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안정을 이루지는 못한다. 비정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태양의 내용물 중 어떤 것이라도 실체적으로 흡철 정도로 가까이 온 적은 없었지만, 지금-현재의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였었다.

안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과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행성들은 앙고나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거대한 중력 팽창이 점차 끝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차가워지고 응축되는 핵들로부터 곧 소규모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보다 부피가 크고 부풀어 오르는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토성과 목성은 앙고나로부터 유실된 대부분의 물질을 초기에 강력한 중력 작용으로 흡수하였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어떤 위성들의 역행 운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열된 태양 기체의 거대한 기둥 한가운데로부터 생성된 토성과 목성은 매우 높은 열을 간직한 태양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발하였고 많은 양의 열을 내뿜었다; 그것들은 실체 안에서, 분리된 공간체로 형성된 후에 잠시 동안 제2의 태양 역할을 하였다. 태양계 안에서 가장 큰 이들 두 행성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체 상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완벽한 응축이나 응결을

independent bodies of matter, solar meteorites, which immediately started to revolve about the sun in elliptical orbits of their own.

57:5.6 (656.2) As the Angona system drew nearer, the solar extrusions grew larger and larger; more and more matter was drawn from the sun to become independent circulating bodies in surrounding space. This situation developed for abou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until Angona made its closest approach to the sun; whereupon the sun, in conjunction with one of its periodic internal convulsions, experienced a partial disruption; from opposite sides and simultaneously, enormous volumes of matter were disgorged. From the Angona side there was drawn out a vast column of solar gases, rather pointed at both ends and markedly bulging at the center, which became permanently detached from the immediate gravity control of the sun.

57:5.7 (656.3) This great column of solar gases which was thus separated from the sun subsequently evolved into the twelve planets of the solar system. The repercussional ejection of gas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sun in tidal sympathy with the extrusion of this gigantic solar system ancestor, has since condensed into the meteors and space dust of the solar system, although much, very much, of this matter was subsequently recaptured by solar gravity as the Angona system receded into remote space.

57:5.8 (656.4) Although Angona succeeded in drawing away the ancestral material of the solar system planets and the enormous volume of matter now circulating about the sun as asteroids and meteors, it did not secure for itself any of this solar matter. The visiting system did not come quite close enough to actually steal any of the sun's substance, but it did swing sufficiently close to draw off into the intervening space all of the material comprising the present-day solar system.

57:5.9 (656.5) The five inner and five outer planets soon formed in miniature from the cooling and condensing nucleuses in the less massive and tapering ends of the gigantic gravity bulge which Angona had succeeded in detaching from the sun, while Saturn and Jupiter were formed from the more massive and bulging central portions. The powerful gravity pull of Jupiter and Saturn early captured most of the material stolen from Angona as the retrograde motion of certain of their satellites bears witness.

57:5.10 (656.6) Jupiter and Saturn, being derived from the very center of the enormous column of superheated solar gases, contained so much highly heated sun material that they shone with a brilliant light and emitted enormous volumes of heat; they were in reality secondary suns for a short period after their formation as separate space bodies. These two largest of the solar

이를 정도로 냉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기체로부터 응축된 다른 10개의 행성들의 핵들은 곧 응결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가까운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중적인 기원을 갖게 되었는데; 기체로부터 응축된 핵과, 나중에 엄청난 양의 운석들을 흡수함으로써 증강된 부분이다. 그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운석들을 흡수하고 있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행성들이 태양의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면 모체가 되는 태양의 적도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오히려 태양의 적도 평면과 적지 않은 각도가 존재되고 있는 앙고나의 태양 분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앙고나가 태양의 물질 중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동안, 태양은 때때로 접근해 오는 우주 체계의 물질들 중 일부를 끌어 당겨서 태양계 행성들에게 덧붙여 줌으로써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앙고나의 강한 중력장으로 인하여, 그것의 영향을 받는 행성 무리들은 거대한 흑암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물질의 분출 직후에, 그리고 앙고나가 아직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안, 앙고나 체계의 주요 행성들 중에서 3개가 덩어리 모양의 최초의 태양계에 너무 근접하여 돌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중력 작용은 더욱 증강되어 이들 세 행성들로 하여금 앙고나의 중력 한계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가서 우주에 떠돌아다니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태양으로부터 분출된 태양계의 물질 전부는 기원적으로는 똑같은 방향의 궤도회전 방향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세 개의 외부 공간체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태양계 물체들은 여전히 궤도운동에서의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3개의 앙고나 종속체의 영향이 외부에서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기세로, 창발하고 있는 태양계에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로 역행 운동이 나타났다. 어떤 우주 체계든지, 역행 운동은 항상 우연한 현상이며, 외부 공간체의 충돌 효과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한 상충 작용이 항상 역행 운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결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system planets have remained largely gaseous to this day, not even yet having cooled off to the point of complete condensation or solidification.

57:5.11 (666.7) The gas-contraction nucleuses of the other ten planets soon reached the stage of solidification and so began to draw to themselves increasing quantities of the meteoric matter circulating in near-by space. The worlds of the solar system thus had a double origin: nucleuses of gas condensation later on augmented by the capture of enormous quantities of meteors. Indeed they still continue to capture meteors, but in greatly lessened numbers.

57:5.12 (667.1) The planets do not swing around the sun in the equatorial plane of their solar mother, which they would do if they had been thrown off by solar revolution. Rather, they travel in the plane of the Angona solar extrusion, which existed at a considerable angle to the plane of the sun's equator.

57:5.13 (667.2) While Angona was unable to capture any of the solar mass, your sun did add to its metamorphosing planetary family some of the circulating space material of the visiting system. Due to the intense gravity field of Angona, its tributary planetary family pursued orbits of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dark giant; and shortly after the extrusion of the solar system ancestral mass and while Angona was yet in the vicinity of the sun, three of the major planets of the Angona system swung so near to the massive solar system ancestor that its gravitational pull, augmented by that of the sun, was sufficient to overbalance the gravity grasp of Angona and to permanently detach these three tributaries of the celestial wanderer.

57:5.14 (667.3) All of the solar system material derived from the sun was originally endowed with a homogeneous direction of orbital swing, and had it not been for the intrusion of these three foreign space bodies, all solar system material would still maintain the same direction of orbital movement. As it was, the impact of the three Angona tributaries injected new and foreign directional forces into the emerging solar system with the resultant appearance of *retrograde motion*. Retrograde motion in any astronomic system is always accidental and always appears as a result of the collisional impact of foreign space bodies. Such collisions may not always produce retrograde motion, but no retrograde ever appears except in a system containing masses which have diverse origins.

제 6 장.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6. THE SOLAR SYSTEM STAGE—THE PLANET-FORMING ERA

태양계가 탄생된 후, 태양의 분출이 점차로 감소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 500,000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주변 우주 공간으로의 물질 분출량은 점점 더 감소되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궤도를 도는 초기 기간 동안, 주변의 천체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태양의 모체는 이러한 운석들 중 많은 부분을 재(再)흡수할 수 있었다.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의 회전 속도가 조수에 따른 마찰에 의해서 먼저 감소되었다. 그러한 중력 영향은 행성-축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행성 궤도가 안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축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행성이 언제나 점점 더 천천히 돌게 하였고, 행성의 반쪽 부분이 항상 태양 또는 더 큰 행성을 향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항상 똑같은 면을 유란시아 쪽으로 향하면서 돌고 있는 달이나 수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달과 지구의 조수에 따른 마찰이 동등하게 되면, 지구도 한쪽 구면만이 달을 향하게 될 것이며, 매월과 날자가 거의 동일하게—약 47일 기간으로—될 것이다. 그러한 궤도 안정이 성립되면, 조수에 따른 마찰은 역작용으로 될 것이며, 달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성이 행성 쪽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먼 훗날에 달은 지구로부터 약 11,000 마일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며, 지구의 중력 작용에 의해 달이 붕괴될 것이고, 이러한 조수-중력 폭발에 의해 달은 작은 입자들로 분쇄되어,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 모양의 물질 띠를 이루거나 아니면 점차 운석으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공간체들의 크기와 비중이 비슷한 상태라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공간체가 비중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크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면, 작은 것이 큰 것 쪽으로 점점 더 접근한다면, 궤도 반경이 큰 천체 반지름의 2.5배에 도달하였을 때 작은 천체의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 안에서 큰 물체들 간의 충돌은 정말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보다 작은 천체의 중력-조수의 폭발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유성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데, 이는 가까이 있는 비슷하지만 더욱 큰 공간체가 일으키는 조수적인 중력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물질로 이루어진 큰 물체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 모양의 띠들은 파괴된 위성의 단편들이다. 목성을 돌고 있는 달들 중 한 개가 현재 조수 파열 임계지역에 거의 도달되어 있으며, 수 백 만년 내에 행성에 의해 이끌리든지, 아니면 중력-조수 폭발이 발생할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이 불규칙적인 궤도를 돌다가 주기적으로 목성에 점점 더 가까이

57:6.1 (657.4) Subsequent to the birth of the solar system a period of diminishing solar disgorgement ensued. Decreasingly, for another five hundred thousand years, the sun continued to pour forth diminishing volumes of matter into surrounding space. But during these early times of erratic orbits, when the surrounding bodies made their nearest approach to the sun, the solar parent was able to recapture a large portion of this meteoric material.

57:6.2 (657.5) The planets nearest the sun were the first to have their revolutions slowed down by tidal friction. Such gravitational influences als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planetary orbits while acting as a brake on the rate of planetary-axial revolution, causing a planet to revolve ever slower until axial revolution ceases, leaving one hemisphere of the planet always turned toward the sun or larger body, as is illustrated by the planet Mercury and by the moon, which always turns the same face toward Urantia.

57:6.3 (657.6) When the tidal frictions of the moon and the earth become equalized, the earth will always turn the same hemisphere toward the moon, and the day and month will be analogous—in length about forty-seven days. When such stability of orbits is attained, tidal frictions will go into reverse action, no longer driving the moon farther away from the earth but gradually drawing the satellite toward the planet. And then, in that far-distant future when the moon approaches to within about eleven thousand miles of the earth, the gravity action of the latter will cause the moon to disrupt, and this tidal-gravity explosion will shatter the moon into small particles, which may assemble about the world as rings of matter resembling those of Saturn or may be gradually drawn into the earth as meteors.

57:6.4 (658.1) If space bodies are similar in size and density, collisions may occur. But if two space bodies of similar density are relatively unequal in size, then, if the smaller progressively approaches the larger, the disruption of the smaller body will occur when the radius of its orbit becomes less than two and one-half times the radius of the larger body. Collisions among the giants of space are rare indeed, but these gravity-tidal explosions of lesser bodies are quite common.

57:6.5 (658.2) Shooting stars occur in swarms because they are the fragments of larger bodies of matter which have been disrupted by tidal gravity exerted by near-by and still larger space bodies. Saturn's rings are the fragments of a disrupted satellite. One of the moons of Jupiter is now approaching dangerously near the critical zone of tidal disruption and, within a few million years, will either be claimed by the planet or will undergo gravity-tidal disruption. The fifth planet of the solar system of long, long ago traversed an irregular

접근하여, 중력-조수 파열의 임계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신속히 단편화되었고, 지금-현재의 소행성 군(群)이 되었다.

4,000,000,000년 전에, 목성과 토성 체계의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것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달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관찰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지나간 수십억 년 동안 크기가 계속 커졌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과 위성들이 계속하여 운석을 흡수하는 결과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500,000,000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들의 응축된 핵들이 잘 형성되었으며, 어떤 작은 위성들은 나중에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현재와 같은 보다 큰 달들이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달들의 중심 부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 시기는 행성들이 연합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3,000,000,000년 전에, 태양계는 오늘날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그 구성원들은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 위에 엄청난 비율로 떨어지는 운석들로 인하여 계속 커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너희가 소속된 태양계가 네바돈의 물질 등록 장소에 기재되었고 그 이름은 몬마시아였다.

2,500,000,000년 전에, 행성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였다. 유란시아는 현재 부피의 10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잘 발전된 구체였으며, 증가되는 운석들로 인하여 여전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란시아에 속한 진화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이며, 생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험을 하도록 준비된 그러한 공간의 물리적인 진화의 시작을 위해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천체적인 준비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 7 장.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원시 행성 환경

이러한 초기 시대에 두루, 태양계의 공간 구역들에는 분열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천체(天體)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으며, 연소 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분쇄된 공간체들이 직접 유란시아의 표면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격에 의해서 행성 표면은 다소 가열된 상태로 지속되었고, 지구가 커짐에 따라 중력 작용도 더욱 증가되면서 철과 같은 무거운 성분이 점점 더 행성의 중심부를 향하여 가라앉히도록 영향을 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orbit, periodically making closer and closer approach to Jupiter until it entered the critical zone of gravity-tidal disruption, was swiftly fragmentized, and became the present-day cluster of asteroids.

57:6.6 (658.3) 4,0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organization of the Jupiter and Saturn systems much as observed today except for their moons, which continued to increase in size for several billions of years. In fact, all of the planets and satellites of the solar system are still growing as the result of continued meteoric captures.

57:6.7 (658.4) 3,500,000,000 years ago the condensation nucleuses of the other ten planets were well formed, and the cores of most of the moons were intact, though some of the smaller satellites later united to make the present-day larger moons. This age may be regarded as the era of planetary assembly.

57:6.8 (658.5) 3,000,000,000 years ago the solar system was functioning much as it does today. Its members continued to grow in size as space meteors continued to pour in upon the planets and their satellites at a prodigious rate.

57:6.9 (658.6) About this time your solar system was placed on the physical registry of Nebadon and given its name, Monmatia.

57:6.10 (658.7) 2,500,000,000 years ago the planets had grown immensely in size. Urantia was a well-developed sphere about one tenth its present mass and was still growing rapidly by meteoric accretion.

57:6.11 (658.8) All of this tremendous activity is a normal part of the making of an evolutionary world on the order of Urantia and constitutes the astronomic preliminaries to the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beginning of the physical evolution of such worlds of space in preparation for the life adventures of time.

7. THE METEORIC ERA — THE VOLCANIC AGE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57:7.1 (658.9) Throughout these early times the space regions of the solar system were swarming with small disruptive and condensation bodies, and in the absence of a protective combustion atmosphere such space bodies crashed directly on the surface of Urantia. These incessant impacts kept the surface of the planet more or less heated, and this, together with the increased action of gravity as the sphere grew larger, began to set in operation those influences which gradually caused the heavier elements, such as iron, to settle more and more toward the center of

2,000,000,000년 전에, 지구는 뚜렷하게 달을 능가하게 되었다. 위성보다 행성이 항상 더 크기는 하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간체 조각들이 지구에 흡수된 이 시기까지,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무렵에 유란시아는 현재 크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였으며, 가열된 안쪽 부분과 냉각된 표면 사이의 내부적 원소 분리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원시적 대기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크기에 도달하였다.

명확한 화산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구의 내부 열은, 방사능을 갖거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운석들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옮겨져 점점 더 깊이 묻힘으로써 계속 증강되었다. 이러한 방사성이 있는 원소들에 대한 연구는 유란시아의 표면이 10억 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듐 측정법은 행성의 생성 년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시간 계산 방법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사성 물질들은 모두 지구 표면으로부터 채취되므로 이 원소들이 비교적 최근에 획득되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측정 결과들은 모두 너무 짧게 나타나게 된다.

1,500,000,000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에 달하였으며, 반면에 달은 현재의 부피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되었다. 지구는 달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것의 위성이 기원적으로 갖고 있었던 미세한 양의 대기를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화산 활동이 최고점에 달하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마치 불타는 지옥처럼 되어, 표면은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중심부로 가라앉기 전의 초기의 용암 상태와 흡사하였다. 이것이 화산기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비교적 가벼운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표면은 점차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장차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원시적인 지구 환경이 서서히 진화되어 갔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증기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수소 등을 함유하게 되었지만, 유리(遊離) 질소와 유리 산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화산 활동기의 지구 환경의 상태는 하나의 어수선한 모습이였다. 여러 가지 기체들 외에, 엄청난 양의 화산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공기 떠가 충분하게 형성되자 지구 표면 위에 끊임 없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들로부터 산화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운석 산화 작용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모두 소모하였으며, 운석이 떨어지는 속도는 여전히 엄청난 것이었다.

이윽고, 대기 상태가 더욱 안정되었고 지구의 가열된 바위 표면 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었다. 유란시아는 수천 년 동

the planet.

57.7.2 (659.1) 2,000,000,000 years ago the earth began decidedly to gain on the moon. Always had the planet been larger than its satellite, but there was not so much difference in size until about this time, when enormous space bodies were captured by the earth. Urantia was then about one fifth its present size and had become large enough to hold the primitive atmosphere which had begun to appear as a result of the internal elemental contest between the heated interior and the cooling crust.

57.7.3 (659.2) Definite volcanic action dates from these times. The internal heat of the earth continued to be augmented by the deeper and deeper burial of the radioactive or heavier elements brought in from space by the meteors. The study of these radioactive elements will reveal that Urantia is more than one billion years old on its surface. The radium clock is your most reliable timepiece for making scientific estimates of the age of the planet, but all such estimates are too short because the radioactive materials open to your scrutiny are all derived from the earth's surface and hence represent Urantia's comparatively recent acquisitions of these elements.

57.7.4 (659.3) 1,500,000,000 years ago the earth was two thirds its present size, while the moon was nearing its present mass. Earth's rapid gain over the moon in size enabled it to begin the slow robbery of the little atmosphere which its satellite originally had.

57.7.5 (659.4) Volcanic action is now at its height. The whole earth is a veritable fiery inferno, the surface resembling its earlier molten state before the heavier metals gravitated toward the center. *This is the volcanic age.* Nevertheless, a crust, consisting chiefly of the comparatively lighter granite, is gradually forming. The stage is being set for a planet which can someday support life.

57.7.6 (659.5)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is slowly evolving, now containing some water vapor,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and hydrogen chloride, but there is little or no free nitrogen or free oxygen. The atmosphere of a world in the volcanic age presents a queer spectacle. In addition to the gases enumerated it is heavily charged with numerous volcanic gases and, as the air belt matures, with the combustion products of the heavy meteoric showers which are constantly hurtling in upon the planetary surface. Such meteoric combustion keeps the atmospheric oxygen very nearly exhausted, and the rate of meteoric bombardment is still tremendous.

57.7.7 (659.6) Presently, the atmosphere became more settled and cooled sufficiently to start precipitation of rain on the hot rocky surface of the

안 한 개의 거대하고 연속적인 증기 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태양은 지구 표면에 전혀 비치지 못하였다.

대기 속에 있던 많은 탄소 원자가 흡수되어 지표층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의 탄산염을 형성하였다. 그 이후 비옥한 토질을 만드는 초기 지구 형성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 기체가 소모되었다.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용암 분출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운석들로 말미암아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거의 전부 소모되기에 이르렀다. 원시적인 바다가 곧 나타나게 되는 초기 퇴적물들 속에도 색깔이 있는 암석이나 이판암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가 나타난 후 오랫동안, 대기 속에는 실질적으로 유리 산소가 거의 없었다; 현저한 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나중에 해초들과 기타 여러 형태의 채소들에 의해서 생성되었을 때였다.

화산 활동기의 원시적인 지구 대기는 운석 무리들의 충돌 현상으로부터 지구를 거의 잘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운석들이 그러한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으며 고체 덩어리로 지구 표면에 충돌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다음 시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운석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제 8 장. 지구 표면의 안정 지진 활동기 바다와 최

초의 대륙 세상

1,0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었다. 지구는 현재의 크기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 네바돈의 물리 등록소에 기재되었으며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끈임 없는 수증기의 응결과 함께, 대기는 지구 표면의 냉각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화산 활동은 일찍이 내부-열 압력과 지표면 응축을 균등화시켰으며; 화산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냉각과 조절이 진행되는 신(新)시대가 나타나면서 지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란시아의 실제적인 지질학적 역사는, 첫 번째의 바다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구 표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지구의 냉각된 표면 위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단 형성되기 시작된 후, 실질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바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평균 1마일이 넘는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오늘날

planet. For thousands of years Urantia was enveloped in one vast and continuous blanket of steam. And during these ages the sun never shone upon the earth's surface.

57:7.8 (659.7) Much of the carbon of the atmosphere was abstracted to form the carbonates of the various metals which abounded in the superficial layers of the planet. Later on, much greater quantities of these carbon gases were consumed by the early and prolific plant life.

57:7.9 (660.1) Even in the later periods the continuing lava flows and the incoming meteors kept the oxygen of the air almost completely used up. Even the early deposits of the soon appearing primitive ocean contain no colored stones or shales. And for a long time after this ocean appeared, there was virtually no free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it did not appear in significant quantities until it was later generated by the seaweeds and other forms of vegetable life.

57:7.10 (660.2) The primitive planetary atmosphere of the volcanic age affords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collisional impacts of the meteoric swarms. Millions upon millions of meteors are able to penetrate such an air belt to smash against the planetary crust as solid bodies. But as time passes, fewer and fewer prove large enough to resist the ever-stronger friction shield of the oxygen-enriching atmosphere of the later eras.

8. CRUSTAL STABILIZATION

THE AGE OF EARTHQUAKES

THE WORLD OCEAN AND THE FIRST CONTINENT

57:8.1 (660.3) 1,000,000,000 years ago is the date of the actual beginning of Urantia history. The planet had attained approximately its present size. And about this time it was placed upon the physical registries of Nebadon and given its name, *Urantia*.

57:8.2 (660.4) The atmosphere, together with incessant moisture precipitation, facilitated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Volcanic action early equalized internal-heat pressure and crustal contraction; and as volcanoes rapidly decreased, earthquakes made their appearance as this epoch of crustal cooling and adjustment progressed.

57:8.3 (660.5) The real geologic history of Urantia begins with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sufficiently to cause the formation of the first ocean. Water-vapor condensation on the cooling surface of the earth, once begun, continued until it was virtually complete.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ocean was world-wide, covering the entire planet to an average depth of over one mile. The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조수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원시적인 이 바다에는 소금기가 없었다; 지구를 뒤덮은 물은 실천적으로 민물과 같은 상태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염소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과 합쳐져 있었으나, 수소와 연합함으로써 이러한 물이 약한 산성을 띄우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아득히 먼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하나의 물속에 갇힌 행성으로 관찰되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욱 두꺼운, 그리하여 농도가 더욱 짙어진 용암이, 현재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밑바닥으로 흘러 나왔으며, 표면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점점 더 두꺼워지는 지층의 평형 작용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현상으로 첫 번째의 거대한 대륙이 지구 전체를 덮은 바다로부터 떠올랐다.

95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하나로 이루어진 물, 태평양으로 구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화산 활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지진 활동은 빈번하고도 맹렬하게 지속되었다. 운석들이 계속하여 지구에 떨어졌지만, 크기와 빈도가 계속 줄어들었다. 대기는 투명하게 되었지만,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지구 표면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유란시아가 행성 운영에 관하여 사타니아의 체계에 배정되고 놀라시아텍의 생명 등록소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가엘이 필사자 증여에서의 엄청난 사업에 착수되고, 유란시아가 지역적으로 “십자가의 세계”로서 알려지게 만든 그런 체함에 참여하게 될 행성으로 운명되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체의 관리-행정적 승인이 시작되었다.

900,000,000년 전에, 행성을 조사하도록 예루셈에서 파견되고, 생명-실험 기지를 위해 적당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고하도록 한, 사타니아의 첫 번째 정찰대가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이 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명운반자, 라노난덱 아들, 멜기세덱, 세라핌천사, 그리고 행성의 조직과 관리-행정의 초기 시절과 관련하여 할 일이 있는 또 다른 천상(天上)의 생명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성에서의 수고스러운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으며, 체계 주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하면서, 유란시아를 생명-실험 등록부에 올리도록 추천하였다.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예루셈에 하나의 십진법 소수의 행성으로 등록되었고, 생명운반자들은 나중에 그들이 생명 이주와 이식 명령을 가지고 도착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활성화 기법으로 새로운 원형들을 제정할 수 있는 허가가 내릴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tides were then in play much as they are now observed, but this primitive ocean was not salty; it was practically a fresh-water covering for the world. In those days, most of the chlorine was combined with various metals, but there was enough, in union with hydrogen, to render this water faintly acid.

57:8.4 (660.6) At the opening of this faraway era, Urantia should be envisaged as a water-bound planet. Later on, deeper and hence denser lava flows came out upon the bottom of the present Pacific Ocean, and this part of the water-covered surface became considerably depressed. The first continental land mass emerged from the world ocean in compensatory adjustment of the equilibrium of the gradually thickening earth's crust.

57:8.5 (660.7) 950,000,000 years ago Urantia presents the picture of one great continent of land and one large body of water, the Pacific Ocean. Volcanoes are still widespread and earthquakes are both frequent and severe. Meteors continue to bombard the earth, but they are diminishing in both frequency and size. The atmosphere is clearing up, but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continues large. The earth's crust is gradually stabilizing.

57:8.6 (660.8) It was at about this time that Urantia was assigned to the system of Satania for planetary administration and was placed on the life registry of Norlatiadek. Then began the administrative recognition of the small and insignificant sphere which was destined to be the planet whereon Michael would subsequently engage in the stupendous undertaking of mortal bestowal, would participate in those experiences which have since caused Urantia to become locally known as the “world of the cross.”

57:8.7 (661.1) 9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arrival on Urantia of the first Satania scouting party sent out from Jerusem to examine the planet and make a report on its adaptation for a life-experiment station. This commission consisted of twenty-four members, embracing Life Carriers, Lanonandek Sons, Melchizedeks, seraphim, and other orders of celestial life having to do with the early days of planeta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57:8.8 (661.2) After making a painstaking survey of the planet, this commission returned to Jerusem and reported favorably to the System Sovereign, recommending that Urantia be placed on the life-experiment registry. Your world was accordingly registered on Jerusem as a decimal planet, and the Life Carriers were notified that they would be granted permission to institute new patterns of mechanical, chemical, and electrical mobilization at the time of their subsequent arrival with life transplantation and implantation mandates.

행성 업무를 위한 준비가 12명의 혼합된 예루셈 위원회에 의해서 완료되고 예덴시아의 70인 행성 위원회에 의해서 인가된 것은 물론이었다. 생명운반자들의 자문 조언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 계획들이 구원자별에서 최종적인 허락을 받았다. 그 직후에 네바돈의 소식통들은, 생명운반자들이 네바돈 생명 원형들의 사타니아 유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계획된 60번째의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유란시아가 도달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우주 방송으로 네바돈 전체에 곧 바로 유란시아가 처음 인지되었으며, 충만한 우주 지위가 수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초우주의 대구역과 소구역 본부 행성들의 기록소에 등록되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란시아는 유버사의 행성-생명 등록소에 기재되었다.

이 기간 전체의 특성은 빈번하고 격렬한 폭풍우로 특징 지워졌다. 초기에 지구의 지각 부분은 연속적인 유동 상태에 있었다. 냉각된 표면은 엄청난 양의 용암 분출로 인하여 변형되었다. 지구 표면의 어느 곳에서도 최초의 지구의 지각 부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지구 전체는 깊은 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흘러나온 용암과 혼합되었고, 초기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바다에서 나중에 퇴적된 물질들과 뒤섞였다.

세계의 어느 지표면에도, 캐나다 북동쪽 허드슨 만(灣) 주변보다도 더, 고대의 해양-이전에 생긴 암반의 변화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화강암이 융기된 이 광대한 지역은 해양-이전 시대에 속하는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암반층들은 가열되고 휘어졌으며 뒤틀려졌고 위쪽으로 주름이 잡혔으며 이러한 뒤틀림의 변형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었다.

해양기에 두루, 화석이 없는 성층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층이 이 고대해양의 바닥에 퇴적되어갔다. (화학적인 침전의 결과로도 석회암이 형성될 수 있다; 오래된 석회암 전체가 해양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 형성된 이러한 암반 속에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중에 일어난 홍수기의 퇴적물이 보다 오래된 이러한 전(前)-생명체 지층과 뒤섞이지 않은 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초기의 지구의 지각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산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구는 형태를 갖추면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응축 현상이 일어났다. 산들은 응축되는 부분에서 냉각된 지층의 붕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빗물과 중력 그리고 침식 작용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거대한 대륙은 지구 표면의

57:8.9 (661.3) In due course arrangements for the planetary occupation were completed by the mixed commission of twelve on Jerusem and approved by the planetary commission of seventy on Edentia. These plans, proposed by the advisory counselors of the Life Carriers, were finally accepted on Salvington. Soon thereafter the Nebadon broadcasts carried the announcement that Urantia would become the stage whereon the Life Carriers would execute their sixtieth Satania experiment designed to amplify and improve the Satania type of the Nebadon life patterns.

57:8.10 (661.4) Shortly after Urantia was first recognized on the universe broadcasts to all Nebadon, it was accorded full universe status. Soon thereafter it was registered in the records of the minor and the major sector headquarters planets of the superuniverse; and before this age was over, Urantia had found entry on the planetary-life registry of Uversa.

57:8.11 (661.5) This entire age was characterized by frequent and violent storms. The early crust of the earth was in a state of continual flux. Surface cooling alternated with immense lava flows. Nowhere can there be found on the surface of the world anything of this original planetary crust. It has all been mixed up too many times with extruding lavas of deep origins and admixed with subsequent deposits of the early world-wide ocean.

57:8.12 (661.6) Nowhere on the surface of the world will there be found more of the modified remnants of these ancient preocean rocks than in northeastern Canada around Hudson Bay. This extensive granite elevation is composed of stone belonging to the preoceanic ages. These rock layers have been heated, bent, twisted, upcrumpled, and again and again have they passed through these distorting metamorphic experiences.

57:8.13 (661.7) Throughout the oceanic ages, enormous layers of fossil-free stratified stone were deposited on this ancient ocean bottom. (Limestone can form as a result of chemical precipitation; not all of the older limestone was produced by marine-life deposition.) In none of these ancient rock formations will there be found evidences of life; they contain no fossils unless, by some chance, later deposits of the water ages have become mixed with these older prelife layers.

57:8.14 (662.1) The earth's early crust was highly unstable, but mountains were not in process of formation. The planet contracted under gravity pressure as it formed. Mountains are not the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cooling crust of a contracting sphere; they appear later on as a result of the action of rain, gravity, and erosion.

57:8.15 (662.2) The continental land mass of this era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대륙이 물 위로 알맞게 떠오를 때까지 심각한 지진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일단 시작되자,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여러 시대 동안 격렬하게 발생되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 작용이 감소되었지만, 유란시아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15번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850,000,000년 전에, 지구의 지각의 실제적인 최초의 안정기가 시작되었다. 보다 무거운 금속성분의 대부분은 지구 중심부로 들어갔으며; 냉각된 지각은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대한 정도의 함몰 현상이 멈추게 되었다. 보다 무거운 해양 지대와 대륙 형성 사이에 보다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부 지포의 용암대 유동은 거의 지구 전체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냉각과 응축 그리고 표면적인 변형에 기인된 불안정을 보상하고 안정화시켰다.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의 크기와 빈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에 있던 화산 먼지들과 수증기들이 없어졌지만,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땅 속과 공기 중의 전기적 교란 현상도 역시 점차 감소되었다. 지구의 지각을 다양화시키고, 특정한 우주-에너지들로부터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합성 원소들이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지구 에너지 통제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으며, 자기장 극점(極點)들의 기능에 의해서 노출되는 것처럼 그것의 흐름을 더욱 규제하도록 하였다.

800,000,000년 전에, 최초의 거대한 육지(陸地) 시대, 증가된 대륙 융기의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에는 세계적인 바다로 그리고 그 후에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그 후에는 지구 표면의 10부의 9를 차지하는 모습이 되었다. 바다로 떨어진 운석들은 해저에 쌓이게 되었고, 운석들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대개 산화(酸化) 되었고, 이어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부식되었으며, 바다 속으로 씻겨 들어갔다. 그리하여 해저 부분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위에 물에 의한 하중이 더해졌으며 어떤 부분은 깊이가 10마일에 달하기도 하였다.

점점 증가되는 태평양의 밑으로 밀어내기는 대륙의 땅 덩어리를 위로 밀어내도록 작용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는 땅 덩어리와,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과 함께 태평양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태평양 지층은 이에 대한 보상하는 조절 작용으로 더욱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기간이 끝나면서,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이

increased until it covered almost ten per cent of the earth's surface. Severe earthquakes did not begin until the continental mass of land emerged well above the water. When they once began, they increased in frequency and severity for ages. For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earthquakes have diminished, but Urantia still has an average of fifteen daily.

57:8.16 (662.3) 850,000,000 years ago the first real epoch of the stabilization of the earth's crust began. Most of the heavier metals had settled down toward the center of the globe; the cooling crust had ceased to cave in on such an extensive scale as in former ages. There was established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land extrusion and the heavier ocean bed. The flow of the subcrustal lava bed became well-nigh world-wide, and this compensated and stabilized the fluctuations due to cooling, contracting, and superficial shifting.

57:8.17 (662.4) Volcanic eruptions and earthquakes continued to diminish in frequency and severity. The atmosphere was clearing of volcanic gases and water vapor, but the percentage of carbon dioxide was still high.

57:8.18 (662.5) Electric disturbances in the air and in the earth were also decreasing. The lava flows had brought to the surface a mixture of elements which diversified the crust and better insulated the planet from certain space-energies. And all of this did much to facilitate the control of terrestrial energy and to regulate its flow, as is disclosed by the functioning of the magnetic poles.

57:8.19 (662.6) 80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great land epoch, the age of increased continental emergence.

57:8.20 (662.7) Since the condensation of the earth's hydrosphere, first into the world ocean and subsequently into the Pacific Ocean, this latter body of water should be visualized as then covering nine tenths of the earth's surface. Meteors falling into the sea accumulated on the ocean bottom, and meteors are, generally speaking, composed of heavy materials. Those falling on the land were largely oxidized, subsequently worn down by erosion, and washed into the ocean basins. Thus the ocean bottom grew increasingly heavy, and added to this was the weight of a body of water at some places ten miles deep.

57:8.21 (662.8) The increasing downthrust of the Pacific Ocean operated further to upthrust the continental land mass. Europe and Africa began to rise out of the Pacific depths along with those masses now called Australia, North and South America, and the continent of Antarctica, while the bed of the Pacific Ocean engaged in a further compensatory sinking adjustment. By the end of

모두 하나의 대륙 몸체로, 땅을 이루었다.

육지의 고도가 이렇게 점차 높아지면서 지구 상에 최초의 기후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땅의 융기와 광대한 구름 층 그리고 해양의 영향들이 기후 변동의 주요 요소였다. 땅이 최고로 융기되었을 때 아시아 지역 중심부의 고도는 거의 9마일에 이르렀다. 공중에는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러한 높이 솟아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얼음 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빙하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광범한 지역의 땅이 수면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에는 수억 년이 걸렸다.

750,000,000년 전에, 대륙이 쪼개지는 일이 처음으로 나타나 거대한 남-북 방향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해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린란드를 포함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 편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틈이 생겨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군도(群島), 그리고 남극 대륙의 땅 덩어리들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잘라져 나갔다.

7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생명을 유지 시키기에 적합한 원숙한 환경에 도달하였다. 대륙의 땅들은 계속하여 유동하였다; 해양의 물이 점점 더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모양의 긴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얕은 물과 보호된 만(灣)은 해양 생명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650,000,000년 전에, 땅 덩어리들은 더욱 분열되었고, 따라서 대륙의 바다들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물들은 유란시아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느 정도의 소금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되었다.

시대가 지나고 세기가 바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잘 보존된 돌 기록 판들이 뒤 이어서 발견되는 것처럼, 유란시아에 대한 삶의 기록이 퇴적되어 있는 것은 이들 바다와 이어지는 바다들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이러한 내륙의 바다들은 정말로 진화의 요람이었다.

[기원적인 유란시아 무리단의 일원이었으며 현재는 거주하는 관찰자인,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this period almost one third of the earth's surface consisted of land, all in one continental body.

57:8.22 (662.9) With this increase in land elevation the first climatic differences of the planet appeared. Land elevation, cosmic clouds, and oceanic influences are the chief factors in climatic fluctuation. The backbone of the Asiatic land mass reached a height of almost nine miles at the time of the maximum land emergence. Had there been much moisture in the air hovering over these highly elevated regions, enormous ice blankets would have formed; the ice age would have arrived long before it did. It was several hundred millions of years before so much land again appeared above water.

57:8.23 (663.1) 750,000,000 years ago the first breaks in the continental land mass began as the great north-and-south cracking, which later admitted the ocean waters and prepared the way for the westward drift of the continents of North and South America, including Greenland. The long east-and-west cleavage separated Africa from Europe and severed the land masses of Australia, the Pacific Islands, and Antarctica from the Asiatic continent.

57:8.24 (663.2) 700,000,000 years ago Urantia was approaching the ripening of conditions suitable for the support of life.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increasingly the ocean penetrated the land as long fingerlike seas providing those shallow waters and sheltered bays which are so suitable as a habitat for marine life.

57:8.25 (663.3) 65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further separation of the land masses and, in consequence, a further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eas. And these waters were rapidly attaining that degree of saltiness which was essential to Urantia life.

57:8.26 (663.4) It was these seas and their successors that laid down the life records of Urantia, as subsequently discovered in well-preserved stone pages, volume upon volume, as era succeeded era and age grew upon age. These inland seas of olden times were truly the cradle of evolution.

57:8.27 (663.5) [Presented by a Life Carrier, a member of the original Urantia Corps and now a resident observer.]

제 58 편 유란시아의 생명 정착

⇨ 057

유란시아 책

059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58 편 유란시아의 생명 정착

섹션

소개

- 제 1 장. 물리적 생명의 선행 조건
- 제 2 장. 유란시아의 대기(大氣)
- 제 3 장. 공간 환경
- 제 4 장. 생명체 태동기
- 제 5 장. 대륙의 이동
- 제 6 장. 과도기
- 제 7 장. 지질학상의 역사책

PAPER 58

LIFE ESTABLISHMENT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 1. Physical-Life Prerequisites
- 2. The Urantia Atmosphere
- 3. Spatial Environment
- 4. The Life-Dawn Era
- 5. The Continental Drift
- 6. The Transition Period
- 7. The Geologic History Book

소개

사타니아 전체에서, 생명체-변형 행성인 유란시아와 비슷한 세계는 61개 밖에 없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은 이미 확정된 기법에 의해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구체에서 생명운반자들은 생명 이식을 위한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거의 여유롭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는 십진법 소수의 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운반자들의 특별 등록에 배정 된다; 그러한 행성에서 우리는 생명의 표준 우주 유형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생명 실험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INTRODUCTION

58:0.1 (664.1) IN ALL Satania there are only sixty-one worlds similar to Urantia, life-modification planets. The majority of inhabited worlds are peopl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techniques; on such spheres the Life Carriers are afforded little leeway in their plans for life implantation. But about one world in ten is designated as a *decimal planet* and assigned to the special registry of the Life Carriers; and on such planets we are permitted to undertake certain life experiments in an effort to modify or possibly improve the standard universe types of living beings.

제 1 장. 물리적 생명의 선행 조건

600,000,000년 전에, 생명운반자들 위원회가 예루셈으로부터 파견되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으며,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의 세상에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사타니아에서 네바돈 생명 원형들을 전수하는 606번째 체험이었으며, 지역우주의 기본적인 표준적인 생명 설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변형을 시도하는 60번째 기회였다

1. PHYSICAL-LIFE PREREQUISITES

58:1.1 (664.2) 600,000,000 years ago the commission of Life Carriers sent out from Jerusem arrived on Urantia and began the study of physical conditions preparatory to launching life on world number 606 of the Satania system. This was to be our six hundred and sixth experience with the initiation of the Nebadon life patterns in Satania and our sixtieth opportunity to make changes and institute modifications in the basic and standard life

구체가 진화 순환주기를 개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성숙되기 전에는 생명운반자가 생명을 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성의 물리적인 진보에 의해서 유지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생명 발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사타니아의 생명운반자들은 생명의 염화나트륨 원형틀을 구체적으로 투사 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충분한 소금기를 갖게 되기 전에는 그것을 심는 단계가 진행될 수 없었다. 유란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금기의 용액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조상이 되는—식물과 동물—모든 생명은 소금-용해 서식지에서 진화되었다. 그리고 비록 매우 고등의 유기체 육지동물도 바로 이 동일한 본질적 소금용해액이 혈류로서 그들의 몸체를 자유롭게 적시어 씻기며, 글자 그대로 잠기어, 모든 각각의 미세 세포가 이 ‘소금물의 심연’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 몸체에 두루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너희의 원시 조상들은 짠 바다에서 자유롭게 순환하였다; 오늘날에는, 바로 이 바다와 같은 소금 용해가 너희의 몸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이 행성에서 기능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소금물과 비교될 수 있는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의 화학적인 용액으로 각각의 독립된 세포를 적셔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유란시아는 모든 면에서 해양 생명의 초기 형태들을 부양(扶養)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었다. 지구와 가까운 공간의 지역들에서, 우리가 결정하였던 것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지상과 공간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발전이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러한 생명 형태들을 수립할 수 있는 미래의 시도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생명운반자들의 사타니아 위원회는 대륙 땅 덩어리가 더 나뉘어져서, 실제적인 생명 이식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내륙 바다와 보호된 만(灣)들이 잘 제공되는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생명이 해양으로부터 기원된 행성에서 생명 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은 수많은 내륙의 바다들, 끝없이 펼쳐진 수심이 얇은 해안선과 보호된 만(灣)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지구상의 물들의 바로 그와 같은 분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고대의 이러한 내륙 해(海)들의 깊이는 500 내지 600피트를 거의 넘지 않았으며, 태양 광선은 해수 600피트 이상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원시 식물 생명이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러한 후대(後代)의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갖는 해안선에서였다. 그곳에 대기 속에 있는 높은 농도의 탄소는 새로운 땅에 신속하고 무성한 성장의 다양한 생명 기회를 제공

designs of the local universe.

58:1.2 (664.3)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Life Carriers cannot initiate life until a sphere is ripe for the inauguration of the evolutionary cycle. Neither can we provide for a more rapid life development than can be supported and accommodated by the physical progress of the planet.

58:1.3 (664.4) The Satania Life Carriers had projected a sodium chloride pattern of life; therefore no steps could be taken toward planting it until the ocean waters had become sufficiently briny. The Urantia type of protoplasm can function only in a suitable salt solution. All ancestral life — vegetable and animal — evolved in a salt-solution habitat. And even the more highly organized land animals could not continue to live did not this same essential salt solution circulate throughout their bodies in the blood stream which freely bathes, literally submerses, every tiny living cell in this “briny deep.”

58:1.4 (664.5) Your primitive ancestors freely circulated about in the salty ocean; today, this same oceanlike salty solution freely circulates about in your bodies, bathing each individual cell with a chemical liquid in all essentials comparable to the salt water which stimulated the first protoplasmic reactions of the first living cells to function on the planet.

58:1.5 (664.6) But as this era opens, Urantia is in every way evolving toward a state favorable for the support of the initial forms of marine life. Slowly but surely physical developments on earth and in adjacent space regions are preparing the stage for the later attempts to establish such life forms as we had decided would be best adapted to the unfolding physical environment — both terrestrial and spatial.

58:1.6 (665.1) Subsequently the Satania commission of Life Carriers returned to Jerusem, preferring to await the further breakup of the continental land mass, which would afford still more inland seas and sheltered bays, before actually beginning life implantation.

58:1.7 (665.2) On a planet where life has a marine origin the ideal conditions for life implantation are provided by a large number of inland seas, by an extensive shore line of shallow waters and sheltered bays; and just such a distribution of the earth's waters was rapidly developing. These ancient inland seas were seldom over five or six hundred feet deep, and sunlight can penetrate ocean water for more than six hundred feet.

58:1.8 (665.3) And it was from such seashores of the mild and equable climes of a later age that primitive plant life found its way onto the land. There the high degree of carbon in the atmosphere afforded the new land varieties of life opportunity for speedy and luxuriant growth.

하였다. 이러한 대기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지표면에 살 수 없었으며 사람은 더욱 그러하였다.

Though this atmosphere was then ideal for plant growth, it contained such a high degree of carbon dioxide that no animal, much less man, could have lived on the face of the earth.

제 2 장. 유란시아의 대기(大氣)

2. THE URANTIA ATMOSPHERE

행성의 대기는 태양의 전체 빛 방출 중에서 약 2십억 분의 일을 지구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만약에 북 아메리카에 비치는 광선에 대하여 시간당 1킬로와트마다 2센트의 비율로 돈을 매긴다면, 연간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약 80 경(京)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태양 광선에 대하여 시카고 시에 부과될 비용은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태양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빛만이 너희의 대기에 끼치는 태양의 기여가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파장들을 포함하여 광대한 태양 에너지들이 유란시아에 내려 쏘이고 있다

스펙트럼의 자외선 맨 끝 부분에 있는 태양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짧은 파장들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10마일 상공 전역에 존재하며 그리고 다시 외부 공간으로 10마일 확장되는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되며, 지구 표면에 영향을 끼치는 오존은 오직 10분의 1인치 두께에 해당되는 층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량이고 겉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은 이러한 오존이 태양광선 속에 있는 위험스럽고 파괴적인 자외선 방사능 물질로부터 유란시아 거주민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조금만 더 두터워도, 너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들 중 하나의 근원이 되며 현재 지구 표면에 쏘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외선이 차단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상력이 빈약한 너희들 필사 기계론자들은 아직도 물질 창조와 인간 진화를 하나의 우연한 현상으로 보기를 고집한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은 우연한 현상적 법칙과 양립될 수 없다고 여기는 5만 가지 이상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사실들을 수집해 왔고, 이것들이 물질 창조 안에 지능적인 목적의 현존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권역 밖에서 발견하고 있는, 계속하여 물질적 조화우주의 계획, 창조 그리고 유지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현존을 증명하게 만드는, 10만 가지 이상의 목록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태양은 너희들에게 진실 그대로 치명적인 광선을 쏟아내고 있고,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쾌적한 삶은, 독특한 이 오존층의 작용과 유사한, 길으

58:2.1 (665.4) The planetary atmosphere filters through to the earth about one two-billionth of the sun's total light emanation. If the light falling upon North America were paid for at the rate of two cents per kilowatt-hour, the annual light bill would be upward of 800 quadrillion dollars. Chicago's bill for sunshine would amount to considerably over 100 million dollars a day.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you receive from the sun other forms of energy — light is not the only solar contribution reaching your atmosphere. Vast solar energies pour in upon Urantia embracing wave lengths ranging both above and below the recognition range of human vision.

58:2.2 (665.5) The earth's atmosphere is all but opaque to much of the solar radiation at the extreme ultraviolet end of the spectrum. Most of these short wave lengths are absorbed by a layer of ozone which exists throughout a level about ten mile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which extends spaceward for another ten miles. The ozone permeating this region, at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earth's surface, would make a layer only one tenth of an inch thick; nevertheless, this relatively small and apparently insignificant amount of ozone protects Urantia inhabitants from the excess of these dangerous and destructive ultraviolet radiations present in sunlight. But were this ozone layer just a trifle thicker, you would be deprived of the highly important and health-giving ultraviolet rays which now reach the earth's surface, and which are ancestral to one of the most essential of your vitamins.

58:2.3 (665.6) And yet some of the less imaginative of your mortal mechanists insist on viewing material creation and human evolution as an accident. The Urantia midwayers have assembled over fifty thousand facts of physics and chemistry which they deem to be incompatible with the laws of accidental chance, and which they contend unmistakably demonstrate the presence of intelligent purpose in the material creation. And all of this takes no account of their catalogue of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findings outside the domain of physics and chemistry which they maintain prove the presence of mind in the planning,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he material cosmos.

58:2.4 (666.1) Your sun pours forth a veritable flood of death-dealing rays, and your pleasant life on Urantia is due to the "fortuitous" influence of more

로 보기에 유연하게 보이는 40가지 이상의 보호 작용들의 “우연한” 영향에 기인되고 있다.

밤에 대기의 “담요” 효과가 없었다면, 방열 작용으로 인하여 열이 너무도 신속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열 공급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구 대기의 아래쪽 5내지 6마일은 대류권이다; 이곳은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과 공기 흐름의 지역이다. 이 지역 위의 아래가 내부 전리층이고 그 위에는 성층권이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6내지 8마일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하강하며, 가장 높은 곳의 온도는 화씨로 약 영하 70도에 이른다. 화씨 영하 65내지 70도에 이르는 이런 온도는 그 다음 40마일을 올라가는 동안 변화가 없으며; 온도가 일정한 이 구역이 성층권이다. 45내지 50마일의 고도에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온도 상승은 오로라 현상이 있는 높이까지 계속되어 화씨로 1,200도까지 올라가며, 이러한 강한 열로 인하여 산소가 이온화 된다. 그러나 이렇게 희박한 대기에서의 온도는 지구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열과 거의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대기의 반 정도가 지표면으로부터 3마일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구 대기의 높이—약 400마일—는 가장 높은 오로라 유광(流光)에 의해서 식별된다.

오로라 현상은 태양 흑점, 지구의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태양의 적도 위와 아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태양의 폭풍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한 대기권 불안은 적도의 위와 아래에서 생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된다.

빛의 파장을 변경시키는 태양 흑점들의 힘은 이러한 태양 소용돌이 중심부들이 막강한 자력(磁力)처럼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자장(磁場)은 태양 흑점 분화구들로부터 지구 바깥쪽 대기로 대전된 입자들을 뿜어내며, 그곳에서 그것들의 이온화 작용이 그러한 장관의 오로라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태양 흑점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혹은 그 직후에—그 점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을 때, 가장 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나침반도 이러한 태양 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뜰 때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지만, 태양 흑점 주기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나침반의 이러한 편차는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날마다 일어나는 나침반의 이러한 변화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층부 대기의 증가된 이온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장파 그리고 단파 방송이

than two-score apparently accidental protective operations similar to the action of this unique ozone layer.

58:2.5 (666.2) Were it not for the “blanketing” effect of the atmosphere at night, heat would be lost by radiation so rapidly that life would be impossible of maintenance except by artificial provision.

58:2.6 (666.3) The lower five or six miles of the earth's atmosphere is the troposphere; this is the region of winds and air currents which provide weather phenomena. Above this region is the inner ionosphere and next above is the stratosphere. Ascending from the surface of the earth, the temperature steadily falls for six or eight miles, at which height it registers around 70 degrees below zero F. This temperature range of from 65 to 70 degrees below zero F. is unchanged in the further ascent for forty miles; this realm of constant temperature is the stratosphere. At a height of forty-five or fifty miles, the temperature begins to rise, and this increase continues until, at the level of the auroral displays, a temperature of 1200° F. is attained, and it is this intense heat that ionizes the oxygen. But temperature in such a rarefied atmosphere is hardly comparable with heat reckoning at the surface of the earth. Bear in mind that one half of all your atmosphere is to be found in the first three miles. The height of the earth's atmosphere is indicated by the highest auroral streamers — about four hundred miles.

58:2.7 (666.4) Auroral phenomena are directly related to sunspots, those solar cyclones which whirl in opposite directions above and below the solar equator, even as do the terrestrial tropical hurricanes. Such atmospheric disturbances whirl in opposite directions when occurring above or below the equator.

58:2.8 (666.5) The power of sunspots to alter light frequencies shows that these solar storm centers function as enormous magnets. Such magnetic fields are able to hurl charged particles from the sunspot craters out through space to the earth's outer atmosphere, where their ionizing influence produces such spectacular auroral displays. Therefore do you have the greatest auroral phenomena when sunspots are at their height — or soon thereafter — at which time the spots are more generally equatorially situated.

58:2.9 (666.6) Even the compass needle is responsive to this solar influence since it turns slightly to the east as the sun rises and slightly to the west as the sun nears setting. This happens every day, but during the height of sunspot cycles this variation of the compass is twice as great. These diurnal wanderings of the compass are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ionization of the upper atmosphere, which is produced by the sunlight.

58:2.10 (666.7) It is the presence of two different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성층권 밖에 있는 서로 다른 정도로 충전된 두 개의 끌어들이는 구역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방송 상태는 이러한 외부 전리층들의 구역에서 가끔 거세게 일어나는 심한 폭풍우에 의해서 때로 교란되기도 한다.

제 3 장. 공간 환경

우주 물질화의 초기 기간 동안에, 공간 구역들은 거대한 수소 구름들, 먼 공간에 두루 많은 구역들을 지금도 특징짓는 그렇게 광대한 먼지 군(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렬한 태양들이 파괴하고 복사 에너지처럼 분산시킨 유기체 물질의 대부분은 기원적으로 초기에 나타난 공간의 수소 구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보다 큰 수소 덩어리들의 핵심부에 원자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자 생성과 분열의 모든 현상은, 극도로 가열된 성운에서 일어날 때, 복사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들의 분출되는 밀물의 창발이 뒤따른다. 동반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사들은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공간-에너지 형태이다.

우주 공간의 이 단파 방사선 에너지 충전은 유기체 공간 권역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복사 에너지의 형태들보다 400배나 더 크다. 짧은 공간 복사선들의 출력이, 타오르는 성운으로부터, 뽕뽕한 전기장으로부터, 외부 공간으로부터, 또는 광대한 수소 먼지 구름들로부터 오든지, 온도와 중력 그리고 전기적 압력의 파동과 그것들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긴장의 변화들에 의해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공간 광선들의 기원에서 생겨나는 것들은 회전하는 물질의 궤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조화우주 발생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변형된 원으로부터 극심한 타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일한 물리적 지대 안에서조차, 보다 큰 물질의 운동과는 간혹 반대 방향으로 전자의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들 역시 크게 변경될 수 있다.

광대한 수소 구름들은 진실 그대로 조화우주 화학적 실험장이며, 진화하는 에너지와 변형되는 물질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거두어둔다. 또한 거대한 에너지 활동들이, 매우 빈번하게 겹쳐짐으로써 광범위하게 뒤섞이는 거대한 운성들의 변두리에 있는 가스들 속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널리 퍼진 공간의 에너지 활동들은 유기적 생명—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의 세포원형질—에 작은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공간의 이러한 에너지 상태들은 생명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복사 에너지의 보다 긴 방사선들의 어떤 것들이 그런 것처럼 세포 원형질의 선천적인 요소들의 뒤이어 일어나는 변형에 효력

levels of electrified conducting regions in the superstratosphere that accounts for the long-distance transmission of your long- and short-wave radiobroadcasts. Your broadcasting is sometimes disturbed by the terrific storms which occasionally rage in the realms of these outer ionospheres.

3. SPATIAL ENVIRONMENT

58:3.1 (666.8) During the earlier times of universe materialization the space regions are interspersed with vast hydrogen clouds, just such astronomic dust clusters as now characterize many regions throughout remote space. Much of the organized matter which the blazing suns break down and disperse as radiant energy was originally built up in these early appearing hydrogen clouds of space. Under certain unusual conditions atom disruption also occurs at the nucleus of the larger hydrogen masses. And all of these phenomena of atom building and atom dissolution, as in the highly heated nebulae, are attended by the emergence of flood tides of short space rays of radiant energy. Accompanying these diverse radiations is a form of space-energy unknown on Urantia.

58:3.2 (667.1) This short-ray energy charge of universe space is four hundred times greater than all other forms of radiant energy existing in the organized space domains. The output of short space rays, whether coming from the blazing nebulae, tense electric fields, outer space, or the vast hydrogen dust clouds, is mod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y fluctuations of, and sudden tension changes in, temperature, gravity, and electronic pressures.

58:3.3 (667.2) These eventualities in the origin of the space rays are determined by many cosmic occurrences as well as by the orbits of circulating matter, which vary from modified circles to extreme ellipses. Physical conditions may also be greatly altered because the electron spin is sometime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at of the grosser matter behavior, even in the same physical zone.

58:3.4 (667.3) The vast hydrogen clouds are veritable cosmic chemical laboratories, harboring all phases of evolving energy and metamorphosing matter. Great energy actions also occur in the marginal gases of the great binary stars which so frequently overlap and hence extensively commingle. But none of these tremendous and far-flung energy activities of space exerts the least influence upon the phenomena of organized life — the germ plasm of living things and beings. These energy conditions of space are germane to the essential environment of life establishment, but they are not effective in the subsequent modification of the inheritance factors of the germ

을 미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한 생명은 우주 에너지의 짧은 공간 방사 광선들의 엄청난 홍수에 모두 충분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모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조화우주 조건들은,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생명 형성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적당한 상태로 진화되어야만 하였다.

제 4 장. 생명체 태동기

우리가 생명운반자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너희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행성들에게 생명을 운반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란시아에는 어떤 생명도 가져오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생명은 독특한 것이며 지구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이곳 구체는 생명-변형의 세계이다; 이곳에 나타난 모든 생명은 바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형성하였다; 유란시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실존하는 세계는 사타니아의 전 지역에 전혀 실존하지 않으며, 네바돈 전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50,000,000년 전에, 생명운반자 무리단은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영적인 힘들과 초(超)물리적 기체들과 협력하여, 이 세계에 대한 기원적인 생명 원형들을 조직하고 창시하였으며 구체의 쾌적한 물속에 그것들을 심었다. 행성영주인 칼리가스티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성 생명은 (가외행성 개인성들은 제외하고) 우리들의 기원적이고 동일하며 동시적인 세 개의 해양-생명 이식들에 의해 기원되었다. 이러한 세 개의 생명 이식들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중앙 혹은 유라시아-아프리카, 동부 혹은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그리고 그린란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이다.

500,000,000년 전에, 원시 해양 식물 생명이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태동되었다. 남-북 아메리카를 위시하여 그린란드와 북극 대륙이 서쪽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는 동쪽과 서쪽에 바다 골짜기, 본래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중해 분지를 조성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 의해서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대륙이 남동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 날 이후로 멀리 떠내려갔다.

우리는 갈라지고 있는 대륙의 땅 덩어리의 동-서로 벌어진 틈새에 있는 중앙 바다의 아늑한 열대 기후의 만(灣)들 속에 해양 생명의 원시 형태를 심었다. 세 개의 해양-생명 이식을 만든 우리들의 목적은 이 생명을, 각각의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나중에 분리되어 나갈 때, 함께 그 파도찬 바닷물 안에 확실하게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땅의 생명이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커다란 대양의 물이 표류하고 있는 이들 대륙 땅 덩어리들을 서로 분리시킬 것으로 예견하였다.

plasm as are some of the longer rays of radiant energy. The implanted life of the Life Carriers is fully resistant to all of this amazing flood of the short space rays of universe energy.

58:3.5 (667.4) All of these essential cosmic conditions had to evolve to a favorable status before the Life Carriers could actually begin the establishment of life on Urantia.

4. THE LIFE-DAWN ERA

58:4.1 (667.5) That we are called Life Carriers should not confuse you. We can and do carry life to the planets, but we brought no life to Urantia. Urantia life is unique, original with the planet. This sphere is a life-modification world; all life appearing hereon was formulated by us right here on the planet; and there is no other world in all Satania, even in all Nebadon, that has a life existence just like that of Urantia.

58:4.2 (667.6) 550,000,000 years ago the Life Carrier corps returned to Urantia. In co-operation with spiritual powers and superphysical forces we organized and initiated the original life patterns of this world and planted them in the hospitable waters of the realm. All planetary life (aside from extraplanetary personalities) down to the days of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had its origin in our three original, identical, and simultaneous marine-life implantations. These three life implantations have been designated as: the *central* or Eurasian-African, the *eastern* or Australasian, and the *western*, embracing Greenland and the Americas.

58:4.3 (668.1) 500,000,000 years ago primitive marine vegetable life was well established on Urantia. Greenland and the arctic land mass, together with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beginning their long and slow westward drift. Africa moved slightly south, creating an east and west trough, the Mediterranean basin, between itself and the mother body. Antarctica, Australia, and the land indicated by the islands of the Pacific broke away on the south and east and have drifted far away since that day.

58:4.4 (668.2) We had planted the primitive form of marine life in the sheltered tropic bays of the central seas of the east-west cleavage of the breaking-up continental land mass. Our purpose in making three marine-life implantations was to insure that each great land mass would carry this life with it, in its warm-water seas, as the land subsequently separated. We foresaw that in the later era of the emergence of land life large oceans of water would separate these drifting continental land masses.

제 5 장. 대륙의 이동

대륙의 땅의 표류는 계속되었다. 지구의 핵심부는 입방 인치당 거의 25,000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져서 중력에 의한 엄청난 압력 때문에, 쇠처럼 농도가 짙어지고 단단해졌으며, 내부 깊숙한 곳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가열되어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도는 점차 증가하며 중심 부분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약간 더 높다.

지구 덩어리의 바깥표면 1,000마일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밑으로는 보다 조밀하고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그리고 대기권이 생기기 전의 시대 전체 동안에는 세계는 뜨겁게 가열되고 녹아 있어서 거의 액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안쪽으로 가라앉았다. 오늘날 표면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고대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들, 나중에 대규모의 용암으로 흘러나온 것들, 그리고 그보다 더 후기에 운석들에 의해 쌓인 것이다.

지표층은 약 40마일의 두께로 되어 있다.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부분은 다양한 두께의 녹아 있는 현무암 바다 바로 위에 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바다는 녹아있는 용암으로 된 유동하는 층으로써, 높은 압력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지구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여 지구 표면을 안정화하기 위해 항상 이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대륙들은 녹아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이 바다 위에 여전히 떠 있다. 이러한 보호 환경이 아니었다면, 보다 심각한 지진들이 세상을 흔들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었을 것이다. 지진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딱딱한 지표층이 미끄러지고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구 지각의 용암층이 냉각되면 화강암이 된다. 유란시아의 평균 비중은 물 비중의 5.5배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화강암의 비중은 물 비중의 3배보다 조금 가볍다. 지구 핵심부는 물 비중의 12배에 해당된다.

바다 밑바닥은 땅 덩어리들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물 위로 솟아나 있는 대륙들이 유지되는 것이다. 바다 밑바닥이 해수면 위로 돌출하게 되면, 그것들이 주로 현무암, 땅 위에 있는 화강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용암의 형태로 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서, 대륙이 해저보다 가볍지 않다면,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만, 그러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해양의 무게는 해저에 점점 더 센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기도하다. 보다 낮은 곳에 있지만 비교적 더 무거운 해저의 지층들은, 그 위에 있는 물의 무게를 더해진 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보

5. THE CONTINENTAL DRIFT

58:5.1 (668.3)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The earth's core had become as dense and rigid as steel, being subjected to a pressure of almost 25,000 tons to the square inch, and owing to the enormous gravity pressure, it was and still is very hot in the deep interior. The temperature increases from the surface downward until at the center it is slightly above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sun.

58:5.2 (668.4) The outer one thousand miles of the earth's mass consists principally of different kinds of rock. Underneath are the denser and heavier metallic elements. Throughout the early and preatmospheric ages the world was so nearly fluid in its molten and highly heated state that the heavier metals sank deep into the interior. Those found near the surface today represent the exudate of ancient volcanoes, later and extensive lava flows, and the more recent meteoric deposits.

58:5.3 (668.5) The outer crust was about forty miles thick. This outer shell was supported by, and rested directly upon, a molten sea of basalt of varying thickness, a mobile layer of molten lava held under high pressure but always tending to flow hither and yon in equalization of shifting planetary pressures, thereby tending to stabilize the earth's crust.

58:5.4 (668.6) Even today the continents continue to float upon this noncrystallized cushiony sea of molten basalt. Were it not for this protective condition, the more severe earthquakes would literally shake the world to pieces. Earthquakes are caused by sliding and shifting of the solid outer crust and not by volcanoes.

58:5.5 (668.7) The lava layers of the earth's crust, when cooled, form granite. The average density of Urantia is a little more than five and one-half times that of water; the density of granite is less than three times that of water. The earth's core is twelve times as dense as water.

58:5.6 (668.8) The sea bottoms are more dense than the land masses, and this is what keeps the continents above water. When the sea bottoms are extruded above the sea level, they are found to consist largely of basalt, a form of lava considerably heavier than the granite of the land masses. Again, if the continents were not lighter than the ocean beds, gravity would draw the edges of the oceans up onto the land, but such phenomena are not observable.

58:5.7 (668.9) The weight of the oceans is also a factor in the increase of pressure on the sea beds. The lower but comparatively heavier ocean beds, plus the weight of the overlying water, approximate

다 가벼운 대륙들의 무게와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대륙들은 해양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해저 계층에서 대륙이 주는 압력은 평방 센티미터 당 약 550 킬로그램에 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저로부터 4,600미터로 솟아 있는 대륙이 가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해저의 수압은 평방 센티미터 당 약 137 킬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러한 압력 차이는 대륙이 해저 쪽으로 미끄러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 동안에 해저의 침강은, 하나뿐이었던 대륙의 땅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측면의 압력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 주변이 비탈길로 미끄러지게 내려가,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바다의 물속에 들어가, 밑에 깔려있는 반쯤 끈적거리는 용암 위로 그렇게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는 높이로 밀어 올렸다. 이것이 대륙의 압력을 너무나 충분히 보상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고대 아시아 대륙 동쪽연안에는 폭 넓은 균열이 발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동쪽 해안은 그 후로 계속, 인접한 해양 심해의 낭떠러지 위에 뻗어있고, 물속에 있는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 있다.

제 6 장. 과도기

450,000,000년 전에, 식물로부터 동물 생명으로의 변천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환은 아늑한 열대성 기후의 만(灣)과, 분리된 대륙들의 광대한 해변의 작은 늪의 얇은 물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모두 기원적인 생명 원형들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초기의 원시식물 형태의 생명과 후기의 잘 조직된 동물 유기체 사이에는 많은 변천 단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과도기 점액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식물이나 동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식물생명에서부터 동물생명에 이르기까지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부터 가장 복잡하고 발전된 유기체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점진적인 연속성을 발견하더라도, 너희는 동물계의 엄청난 분할들의 사이에 대한 연결 고리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전 동물 유형의 가장 발전된 것과 인간 종족의 원시인사이의 연결 고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잃어버린 연결 고리들”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생명체 종(種)들이 발생하였다. 그것들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들이 아니다; 그들은 충만한-성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으로 나타났으며, 갑자기 나타났다.

새로운 종족들과 다양한 계층의 생명 유기체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전적으로 생물학적, 순진

the weight of the higher but much lighter continents. But all continents tend to creep into the oceans. The continental pressure at ocean-bottom levels is about 20,000 pounds to the square inch. That is, this would be the pressure of a continental mass standing 15,000 feet above the ocean floor. The ocean-floor water pressure is only about 5,000 pounds to the square inch. These differential pressures tend to cause the continents to slide toward the ocean beds.

58:5.8 (669.1) Depression of the ocean bottom during the prelife ages had upthrust a solitary continental land mass to such a height that its lateral pressure tended to cause the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fringes to slide downhill, over the underlying semiviscous lava beds, into the waters of the surrounding Pacific Ocean. This so fully compensated the continental pressure that a wide break did not occur on the eastern shore of this ancient Asiatic continent, but ever since has that eastern coast line hovered over the precipice of its adjoining oceanic depths, threatening to slide into a watery grave.

6. THE TRANSITION PERIOD

58:6.1 (669.2) 450,000,000 years ago the transition from vegetable to animal life occurred. This metamorphosis took place in the shallow waters of the sheltered tropic bays and lagoons of the extensive shore lines of the separating continents. And this development, all of which was inherent in the original life patterns, came about gradually. There were many transitional stages between the early primitive vegetable forms of life and the later well-defined animal organisms. Even today the transition slime molds persist, and they can hardly be classified either as plants or as animals.

58:6.2 (669.3) Although the evolution of vegetable life can be traced into animal life, and though there have been found graduated series of plants and animals which progressively lead up from the most simple to the most complex and advanced organisms,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such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great divisions of the animal kingdom nor between the highest of the prehuman animal types and the dawn men of the human races. These so-called “missing links” will forever remain missing,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y never existed.

58:6.3 (669.4) From era to era radically new species of animal life arise. They do not evolve as the result of the gradual accumulation of small variations; they appear as full-fledged and new orders of life, and they appear suddenly.

58:6.4 (669.5) The sudden appearance of new species and diversified orders of living organisms

히 자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초자연적인 간섭은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

해양의 적당한 정도의 소금기 속에서 동물 생명이 진화하였으며, 해양 생명의 동물 몸체 속으로 소금기의 물이 순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양이 줄어들고 소금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자, 똑같은 이들 동물들은 자신들 체액의 소금기를 줄이는 능력을 진화시켰으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소금기를 보존하는 독창적인 기법에 의해서 자신의 체액 속에 적당한 정도의 염화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민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운 그러한 유기체들과도 같았다.

바위에-안겨있는 해양 생명체 화석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 원시 유기체들의 조창기 조절 투쟁을 제시한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이러한 조절 실험을 결코 그치지 않는다. 환경은 언제까지나 변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결코-끝남이 없는 이들 동요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생명의 모든 새로운 계층들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장치는 물리 법칙의 작용에 응답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음 자질은 타고난 뇌의 수용 능력에 따른 보조 마음-영들의 증여이다. 마음은 물리적 진화가 아니라, 순전히 물리적이고 진화적인 성장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뇌의 수용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거의 끝없이 순환되는 획득과 손실, 조절과 재(再)조절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보 또는 전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조화우주 합일을 달성하는 존재들은 존속되지만,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도태된다.

제 7 장. 지질학상의 역사책

생명 태동기와 원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였던 바위 덩어리들의 광대한 무리는 지금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쌓인 모든 퇴적물의 아래로부터 솟아오를 때, 그곳에서는 오직 식물과 초기의 원시 동물 생명의 화석유물들만이 발견될 것이다. 더 오래된 물에 의해서 퇴적된 이 바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후에 이루어진 지층들과 뒤섞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초기 형태의 식물 생명들 중 일부분의 화석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초기 해양 동물 유기체의 보다 원시 형태들 일부가 간혹 발견될 수도 있다. 초기의 동물과 식물의 해양 생물체로 이루어진 화석이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이 성층암 지층들은 많은 곳에서 분화되지 않은 고대의 바위 위에서 직접 발견될 수 있다.

is wholly biologic, strictly natural. There is nothing supernatural connected with these genetic mutations.

58:6.5 (669.6) At the proper degree of saltiness in the oceans animal life evolved, and it was comparatively simple to allow the briny waters to circulate through the animal bodies of marine life. But when the oceans were contracted and the percentage of salt was greatly increased, these same animals evolved the ability to reduce the saltiness of their body fluids just as those organisms which learned to live in fresh water acquired the ability to maintain the proper degree of sodium chloride in their body fluids by ingenious techniques of salt conservation.

58:6.6 (669.7) Study of the rock-embraced fossils of marine life reveals the early adjustment struggles of these primitive organisms. Plants and animals never cease to make these adjustment experiments. Ever the environment is changing, and always are living organisms striving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se never-ending fluctuations.

58:6.7 (670.1) The physiologic equipment and the anatomic structure of all new orders of life are in response to the action of physical law, but the subsequent endowment of mind is a bestowal of the adjutant mind-spirits in accordance with innate brain capacity. Mind, while not a physical evolution, is wholly dependent on the brain capacity afforded by purely physical and evolutionary developments.

58:6.8 (670.2) Through almost endless cycles of gains and losses,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all living organisms swing back and forth from age to age. Those that attain cosmic unity persist, while those that fall short of this goal cease to exist.

7. THE GEOLOGIC HISTORY BOOK

58:7.1 (670.3) The vast group of rock systems which constituted the outer crust of the world during the life-dawn or Proterozoic era does not now appear at many points on the earth's surface. And when it does emerge from below all the accumulations of subsequent ages, there will be found only the fossil remains of vegetable and early primitive animal life. Some of these older water-deposited rocks are commingled with subsequent layers, and sometimes they yield fossil remains of some of the earlier forms of vegetable life, while on the topmost layers occasionally may be found some of the more primitive forms of the early marine-animal organisms. In many places these oldest stratified rock layers, bearing the fossils of the early marine life, both animal and vegetable, may be found directly on top of the older undifferentiated stone.

이 시기의 화석들 속에는 해초, 산호 모양의 식물들, 원시 원생동물 종류들,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변천기의 유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의 바위 층 속에 그러한 화석들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것들의 퇴적기에 어느 곳에도 실존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이러한 초기 시대에 두루 매우 희소하였고, 지구 표면으로 단지 서서히 나아갔을 뿐이다.

이 고대의 바위들이 현재 지구 표면에 있거나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륙 전체의 약 8분의 1에 걸쳐있다. 가장 오래된 성층암 지층인, 변천기에 이루어진 이 돌의 평균 두께는 약 1.5마일에 이른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대의 이 바위 덩어리들이 4마일에 이르는 두께를 갖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지층들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원시 화석이 들어 있는 고대의 이 바위 지층이 동부와 중앙 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북부 지역의 지표면에 돌출 되어 있다. 또한 그곳에는 펜실베이니아와 고대의 애디론덱 산들로부터 시작하여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 나간 이 바위 층으로 이루어진 동-서 방향의 간헐적인 산맥이 있다. 뉴펀드랜드로부터 앨라배마로, 그리고 알래스카로부터 멕시코로 이어지는 다른 산맥들도 있다.

이 시대의 바위들이 세계 곳곳에 노출되어 있지만,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랜드 캐년과 슈퍼리어 호수 근처의 지역에 있는 바위들처럼 쉽게 확인되는 곳이 없으며, 그곳에서 이 원시 화석이 들어 있고 여러 층으로 존재하는 이 바위들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융기와 지표면 변동을 증명한다.

겉질의 가장 오래된 화석이 들어 있는 지층인 이 암석층은 주름이 지고 겹쳐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융기와 초기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어졌다. 이 시기의 용암 분출은 많은 철과 동 그리고 납을 지구 표면 가까이 가져왔다.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 크로익스 계곡보다 더 생생하게 그러한 활동들이 보이는 장소는 이 지구 위에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는 127회에 달하는 연속적인 땅 위로의 용암 분출과 이어지는 침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바위의 퇴적이 일어났었다. 대부분의 상층부 암반의 침전과 간헐적인 용암 분출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구조들의 밑바닥이 지구 속 깊은 곳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약 65-70개의 지나간 시대들의 층화(層化)된 기록들이 현재 밖으로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과 거의 동일하였던 이러한 초기 시대에,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침강과 융기가 발생되었다. 지구의 지각은 비교적 안정된 후기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다. 초기 대륙의 표

58:7.2 (670.4) Fossils of this era yield algae, corallike plants, primitive Protozoa, and spongelike transition organisms. But the absence of such fossils in the early rock layers does not necessarily prove that living things were not elsewhere in existence at the time of their deposition. Life was sparse throughout these early times and only slowly made its way over the face of the earth.

58:7.3 (670.5) The rocks of this olden age are now at the earth's surface, or very near the surface, over about one eighth of the present land area. The average thickness of this transition stone, the oldest stratified rock layers, is about one and one-half miles. At some points these ancient rock systems are as much as four miles thick, but many of the layers which have been ascribed to this era belong to later periods.

58:7.4 (670.6) In North America this ancient and primitive fossil-bearing stone layer comes to the surface over the eastern,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of Canada. There is also an intermittent east-west ridge of this rock which extends from Pennsylvania and the ancient Adirondack Mountains on west through Michigan, Wisconsin, and Minnesota. Other ridges run from Newfoundland to Alabama and from Alaska to Mexico.

58:7.5 (670.7) The rocks of this era are exposed here and there all over the world, but none are so easy of interpretation as those about Lake Superior and in the Grand Canyon of the Colorado River, where these primitive fossil-bearing rocks, existing in several layers, testify to the upheavals and surface fluctuations of those faraway times.

58:7.6 (670.8) This stone layer, the oldest fossil-bearing stratum in the crust of the earth, has been crumpled, folded, and grotesquely twisted as a result of the upheavals of earthquakes and the early volcanoes. The lava flows of this age brought much iron, copper, and lead up near the planetary surface.

58:7.7 (670.9) There are few places on the earth where such activities are more graphically shown than in the St. Croix valley of Wisconsin. In this region there occurred one hundred and twenty-seven successive lava flows on land with succeeding water submergence and consequent rock deposition. Although much of the upper rock sedimentation and intermittent lava flow is absent today, and though the bottom of this system is buried deep in the earth, nevertheless, about sixty-five or seventy of these stratified records of past ages are now exposed to view.

58:7.8 (671.1) In these early ages when much land was near sea level, there occurred many successive submergences and emergences. The earth's crust was just entering upon its later period

류의 굽이치는 현상들, 상승과 하강 작용들로 인하여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

원시 해양 생명의 이 기간 동안, 광대한 지역의 대륙 해안선이 작게는 몇 피트에서 크게는 반 마일에 이르기까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 오래된 사암과 역암의 대부분은 이러한 고대의 해안선이 침전 퇴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성층(成層)에 들어 있는 퇴적암들은 생명의 기원 훨씬 전, 지구 전역에 퍼진 해양의 시기에 형성된 지층들 바로 위에 놓여 있다.

이들 변천기 암반 퇴적의 상층의 일부에는 소량의 이판암이나 어두운 색깔의 점판암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유기질 탄소의 현존을 의미하며, 계속된 석탄기 동안에 지구 위에 널리 퍼진 식물 생명 형태들의 조상이 실존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암석층 속에 있는 구리 성분의 대부분은 물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것은 더 오래된 바위들 틈 속에서 발견되며, 고대의 보호된 해안선에 있던 완만한 늪지대의 물로부터 응축된 것이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의 철광들은, 층을 이루지 않은 더 오래된 암석들 속에 그리고 생명 형성의 변환기에 층을 이룬 후대의 바위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과 분출된 지층 속에 위치한다.

이 시대에 세상의 물 속 전역에 걸쳐서 생명의 분포가 있었음이 목격되고 있다; 해양 생명이 유란시아에 잘 자리를 잡게 되었다. 깊이가 얕은 광대한 내륙의 바다들 밑바닥은 풍부하고 울창하게 자라나는 식물들로 점차 가득 차게 되어가고, 반면에 해안선의 물에는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들로 들끓고 있다.

모든 이 이야기는 지구 전체에 기록된 광대한 “암석 역사책”의 화석에서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거대한 이 생물지질학적 기록들 속에서 반드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해저 지층들 대부분은 현재 육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퇴적된 지층들은 그 초기에 생명들이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준다. 너희들 중에 어떤 시인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도 한 때는 살아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현재 지구에 거하고 있는 유란시아 생명운반자 무리단의 일원에 의해 제시되었음]

of comparative stabilization. The undulations, rises and dips, of the earlier continental drift contributed to the frequency of the periodic submergence of the great land masses.

58:7.9 (671.2) During these times of primitive marine life, extensive areas of the continental shores sank beneath the seas from a few feet to half a mile. Much of the older sandstone and conglomerates represents the sedimentary accumulations of these ancient shores. The sedimentary rocks belonging to this early stratification rest directly upon those layers which date back far beyond the origin of life, back to the early appearance of the world-wide ocean.

58:7.10 (671.3) Some of the upper layers of these transition rock deposits contain small amounts of shale or slate of dark colors, indicating the presence of organic carbon and testifying to the existence of the ancestors of those forms of plant life which overran the earth during the succeeding Carboniferous or coal age. Much of the copper in these rock layers results from water deposition. Some is found in the cracks of the older rocks and is the concentrate of the sluggish swamp water of some ancient sheltered shore line. The iron mine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located in deposits and extrusions lying partly in the older unstratified rocks and partly in these later stratified rocks of the transition periods of life formation.

58:7.11 (671.4) This era witnesses the spread of life throughout the waters of the world; marine life has become well established on Urantia. The bottoms of the shallow and extensive inland seas are being gradually overrun by a profuse and luxuriant growth of vegetation, while the shore-line waters are swarming with the simple forms of animal life.

58:7.12 (671.5) All of this story is graphically told within the fossil pages of the vast “stone book” of world record. And the pages of this gigantic biogeologic record unfailingly tell the truth if you but acquire skill in their interpretation. Many of these ancient sea beds are now elevated high upon land, and their deposits of age upon age tell the story of the life struggles of those early days. It is literally true, as your poet has said, “The dust we tread upon was once alive.”

58:7.13 (671.6) [Presented by a member of the Urantia Life Carrier Corps now resident on the planet.]

제 59 편 유란시아의 해양-생명 시대

⇨ 058

유란시아 책

060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59 편 유란시아의 해양-생명 시대

색션

소개

제 1 장.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
삼엽충 시대

제 2 장. 제 1차 대륙 홍수—무척추(無脊
椎) 동물기

제 3 장. 제 2차 대 홍수—산호기—완족류
기

제 4 장. 대륙 융기 단계—식물성 육지-생
명 기간—어류기

제 5 장. 지각-이동 단계—양치류-삼림의
석탄기—개구리 시대

제 6 장. 기후 과도기—종자 식물기—생물
학적 시련기

소개

우리는 유란시아의 역사를 10억 년 전부터 계
산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5단계의 시대로 구분 한
다:

1. 전(前)-생명체기는 지구가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때로부터 생명이 태동되기 직전까지 약 4
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기간이다. 지구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시생대(始生代)라고
부르고 있다.

2. 생명 태동기는 그 다음부터 1억 5천만 년의
기간이다. 이 신(新)시대는 앞에 있는 전(前)생명
체기 혹은 격변기와, 뒤에 있는 고도로 발달된 해
양-생명 기간 사이에 들어 있다. 이 시대는 연구자
들에게 원생대(原生代)라고 알려져 있다.

PAPER 59

THE MARINE-LIFE ERA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Early Marine Life in the Shallow Seas
The Trilobite Age

2. The First Continental Flood Stage
The Invertebrate-Animal Age

3. The Second Great Flood Stage
The Coral Period—The Brachiopod Age

4. The Great Land-Emergence Stage
The Vegetative Land-Life Period

The Age of Fishes

5. The Crustal-Shifting Stage
The Fern-Forest Carboniferous Period

The Age of Frogs

6. The Climatic Transition Stage
The Seed-Plant Period

The Age of Biologic Tribulation

INTRODUCTION

59:0.1 (672.1) WE RECKON the history of Urantia
as beginning about one billion years ago and
extending through five major eras:

59:0.2 (672.2) 1. *The prelife era* extends over the
initial four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from
about the time the planet attained its present size to
the time of life establishment. Your students
have designated this period as the *Archeozoic*.

59:0.3 (672.3) 2. *The life-dawn era* extends over the
nex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This
epoch intervenes between the preceding prelife or
cataclysmic age and the following period of more
highly developed marine life. This era is known to

3. 해양-생명체기는 그 다음의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며, 너희는 이 기간을 고생대(古生代)라고 알고 있다.

4. 초기 육지-생명체기는 그 다음 1억 년의 기간이며 중생대(中生代)로 알려져 있다.

5. 포유류기는 마지막 5천만년에 해당된다. 최근의 이 기간은 신생대(新生代)라고 알려져 있다.

위에서 보듯이 해양-생명 시대는 지구 역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은 여섯 개의 긴 기간들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그 기간들은 지질학적 분야와 생물학적 권역 모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정한 발전 단계를 이루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 기간이 시작될 때, 바다 밑바닥과 광대한 대륙붕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분지들은 풍부한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보다 단순하고 원시 형태의 동물 생명들이, 선행된 식물성 유기체들로부터 이미 발전되어 나타났으며, 초기 동물 유기체들은 많은 내륙 바다들이 원시 해양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 땅 덩어리들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유기체들은 껍질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생명-기록을 담고 있는 그 엄청난 “암석 역사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해양-생명체기 전체의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퇴적층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층들은 지구 성장의 이러한 두 단계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는 침식작용으로 인한 광대한 퇴적층들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기간과 구별되고 있다.

제 1 장.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삼엽충 시대

비교적 고요한 이 기간이 지구 표면에 시작될 무렵에, 생명은 해양의 해안선과 여러 내륙 바다들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였다; 육상 유기체의 형태는 아직 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시 해양 동물들이 성공적으로 태동되었고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일어날 준비가 갖추어졌다. 아메바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동물 생명이 살아남아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앞에 있는 변환기가 끝날 무렵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400,000,000년 전에, 식물성과 동물성의 해양

your researchers as the *Proterozoic*.

59:0.4 (672.4) 3. *The marine-life era covers the next two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nd is best known to you as the Paleozoic.*

59:0.5 (672.5) 4. *The early land-life era extends over the next one hundred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Mesozoic.*

59:0.6 (672.6) 5. *The mammalian era occupies the last fifty million years. This recent-times era is known as the Cenozoic.*

59:0.7 (672.7) *The marine-life era thus covers about one quarter of your planetary history. It may be subdivided into six long periods, each characterized by certain well-defined developments in both the geologic realms and the biologic domains.*

59:0.8 (672.8) *As this era begins, the sea bottoms, the extensive continental shelves, and the numerous shallow near-shore basins are covered with prolific vegetation. The more simple and primitive forms of animal life have already developed from preceding vegetable organisms, and the early animal organisms have gradually made their way along the extensive coast lines of the various land masses until the many inland seas are teeming with primitive marine life. Since so few of these early organisms had shells, not many have been preserved as fossils. Nevertheless the stage is set for the opening chapters of that great “stone book” of the life-record preservation which was so methodically laid down during the succeeding ages.*

59:0.9 (672.9) *The continent of North America is wonderfully rich in the fossil-bearing deposits of the entire marine-life era. The very first and oldest layers are separated from the later strata of the preceding period by extensive erosion deposits which clearly segregate these two stages of planetary development.*

1. EARLY MARINE LIFE IN THE SHALLOW SEAS THE TRILOBITE AGE

59:1.1 (673.1) *By the dawn of this period of relative quiet on the earth's surface, life is confined to the various inland seas and the oceanic shore line; as yet no form of land organism has evolved. Primitive marine animals are well established and are prepared for the next evolutionary development. Amebas are typical survivors of this initial stage of animal life, having made their appearance toward the close of the preceding transition period.*

59:1.2 (673.2) *400,000,000 years ago marine life, both*

생명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지구의 기후는 약간씩 더워졌고 더욱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여러 대륙들 특히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전역이 침수되었다. 새로운 해양들이 나타났고, 전에 있던 침수 지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때 식물류가 처음으로 땅 위로 상륙하였으며 해양이 아닌 다른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곧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중자 변환 없이 최초의 다세포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삼엽충이 진화되어 나타났고, 오랫동안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 해양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삼엽충 시대였다.

이 기간 후반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지구의 지각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여러 산들 혹은 비교적 고지대의 땅들이, 서부 인도 지역과 남부 유럽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융기하였다. 카리브 지역 전체가 매우 높이 솟아올랐다.

390,000,000년 전에도, 땅은 여전히 융기되었다. 동부와 서부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유럽 지역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퇴적된 암석층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의 암석들도 들어 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화석이 들어있는 퇴적암들로 구성된 땅 덩어리들 안쪽으로 손가락 모양의 긴 만(灣)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평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역의 침강은, 후기에 일어난 대륙의 분리 혹은 대륙의 유동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지표면 조질 현상으로 기인된 것이었다.

380,000,000년 전에, 아시아 대륙이 가라앉았으며, 다른 대륙들은 일시적으로 융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신(新)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서양이, 인접한 전(全) 해안선을 광범위하게 침식시켰다. 그 때 북부 대서양 혹은 북극해는 남부의 걸프 바닷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부에 있는 이 바다가 아팔라치아 해구(海溝)로 유입되었을 때, 그 물결이 산들의 동쪽 편으로 갑자기 밀어닥쳐서 알프스 산과 거의 같은 높이에 이르렀지만, 대륙들은 대개 완만한 낮은 지대, 거의 보잘것없는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에 침전된 퇴적물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이다:

1. 역암—해변가에 퇴적된 물질.

2. 사암—얕은 물이기는 하지만 파도에 의해서 진흙 침전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진 퇴적층들.

3. 이판암—보다 잔잔한 깊은 물속에 이루어진 퇴적층.

vegetable and animal, is fairly well distributed over the whole world. The world climate grows slightly warmer and becomes more equable. There is a general inundation of the seashores of the various continents, particularly of North and South America. New oceans appear, and the older bodies of water are greatly enlarged.

59:1.3 (673.3) Vegetation now for the first time crawls out upon the land and soon makes considerable progress in adaptation to a nonmarine habitat.

59:1.4 (673.4) Suddenly and without gradation ancestry the first multicellular animals make their appearance. The trilobites have evolved, and for ages they dominate the seas. From the standpoint of marine life this is the trilobite age.

59:1.5 (673.5) In the later portion of this time segment much of North America and Europe emerged from the sea. The crust of the earth was temporarily stabilized; mountains, or rather high elevations of land, rose along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over the West Indies, and in southern Europe. The entire Caribbean region was highly elevated.

59:1.6 (673.6) 39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still elevated. Over parts of eastern and western America and western Europe may be found the stone strata laid down during these times, and these are the oldest rocks which contain trilobite fossils. There were many long fingerlike gulfs projecting into the land masses in which were deposited these fossil-bearing rocks.

59:1.7 (673.7) Within a few million years the Pacific Ocean began to invade the American continents. The sinking of the land was principally due to crustal adjustment, although the lateral land spread, or continental creep, was also a factor.

59:1.8 (673.8) 380,000,000 years ago Asia was subsiding, and all other continents were experiencing a short-lived emergence. But as this epoch progressed, the newly appearing Atlantic Ocean made extensive inroads on all adjacent coast lines. The northern Atlantic or Arctic seas were then connected with the southern Gulf waters. When this southern sea entered the Appalachian trough, its waves broke upon the east against mountains as high as the Alps, but in general the continents were uninteresting lowlands, utterly devoid of scenic beauty.

59:1.9 (673.9) The sedimentary deposits of these ages are of four sorts:

59:1.10 (673.10) 1. Conglomerates — matter deposited near the shore lines.

59:1.11 (673.11) 2. Sandstones — deposits made in shallow water but where the waves were sufficient to prevent mud settling.

59:1.12 (673.12) 3. Shales — deposits made in the deeper and more quiet water.

4. 석회암—깊은 물속에 있는 형성된 삼엽충 껍질이 들어 있는 지층.

이 시기에 형성된 삼엽충 화석은 뚜렷이 식별되는 특정한 변이들과 함께 어떤 근본적인 균일성을 보여준다. 세 개의 기원적 생명 이식으로부터 발전한 초기 동물들은 특징이 있었다; 저들 서반구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유라시아 집단의 것들, 그리고 오스트랄라시아 즉 오스트레일리아-남극 대륙 유형과 조금 달랐다.

370,000,000년 전에, 남-북 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대한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곧 이어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도 물에 잠겼다. 북 아메리카의 특정 지역들만이 캄브리아기의 얕은 바다 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500만 년 후에 땅이 융기되기 전에 바다가 먼저 줄어들었다. 땅이 솟고 꺼지는 이 모든 현상들은 극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다.

삼엽충 화석이 들어 있는 이 신(新)시대의 지층은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대륙 여기저기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암석층이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압력과 겹쳐지는 현상에 의해서 기울어지고 뒤틀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많은 지역에서 퇴적층의 본래 성격을 변형시켰다. 사암(砂巖)은 석영으로 바뀌었고, 이판암은 점판암으로 변화되었으며, 반면에 석회암은 대리석으로 바뀌었다.

360,000,000년 전에, 땅은 여전히 융기되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는 잘 솟아올라 있었다. 깊이 가라앉았던, 웨일즈 지역을 제외한 영국의 섬들과 서부 유럽 지역이 솟아올랐다. 이 시대 동안에 거대한 빙하 층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지층에서 이 지층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되는 빙하 퇴적층은, 독립된 산의 빙하 층으로 기인되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발생한 빙하 조각들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다. 전 세계의 기후는 대륙성이 아니라 해양성 기후였다. 남부의 바다들은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을 거쳐 양극 지방으로 퍼져갔다. 걸프 조류가 북아메리카 중심지역을 지나, 동쪽으로 굽어져서 그린란드 해안이 물에 잠기어 씻기고 따뜻하게 했으며,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대륙을 열대성 기후인 정말로 하나의 파라다이스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 해양 생물은 온 세계에 동일하게 퍼져 있었고, 해초, 단일 세포의 유기체, 단순한 형태의 스펀지, 삼엽충들, 그리고 다른 갑각류의 새우와 게 그리고 가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3,000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완족류(腕足類)들이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 200가지 정도만이 살아남았다. 이 동물들은 실천적으로 오늘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양한 초기 생명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삼엽충들이 가장 우세한 생명 창조체

59:1.13 (673.13) 4. Limestone — including the deposits of trilobite shells in deep water.

59:1.14 (673.14) The trilobite fossils of these times present certain basic uniformities coupled with certain well-marked variations. The early animals developing from the three original life implantations were characteristic; those appearing in the Western Hemisphere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urasian group and from the Australasian or Australian-Antarctic type.

59:1.15 (674.1) 370,000,000 years ago the great and almost total submergence of North and South America occurred, followed by the sinking of Africa and Australia. Only certain parts of North America remained above these shallow Cambrian seas. Five million years later the seas were retreating before the rising land. And all of these phenomena of land sinking and land rising were undramatic, taking place slowly over millions of years.

59:1.16 (674.2) The trilobite fossil-bearing strata of this epoch outcrop here and there throughout all the continents except in central Asia. In many regions these rocks are horizontal, but in the mountains they are tilted and distorted because of pressure and folding. And such pressure has, in many places, changed the original character of these deposits. Sandstone has been turned into quartz, shale has been changed to slate, while limestone has been converted into marble.

59:1.17 (674.3) 36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still rising.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well up. Western Europe and the British Isles were emerging, except parts of Wales, which were deeply submerged. There were no great ice sheets during these ages. The supposed glacial deposits appearing in connection with these strata in Europe, Africa, China, and Australia are due to isolated mountain glaciers or to the displacement of glacial debris of later origin. The world climate was oceanic, not continental. The southern seas were warmer than now, and they extended northward over North America up to the polar regions. The Gulf Stream coursed over the central portion of North America, being deflected eastward to bathe and warm the shores of Greenland, making that now ice-mantled continent a veritable tropic paradise.

59:1.18 (674.4) The marine life was much alike the world over and consisted of the seaweeds, one-celled organisms, simple sponges, trilobites, and other crustaceans — shrimps, crabs, and lobsters. Three thousand varieties of brachiopods appeared at the close of this period, only two hundred of which have survived. These animals represent a variety of early life which has come down to the present time practically unchanged.

59:1.19 (674.5) But the trilobites were the dominant

이었다. 그것들은 성(性) 구분이 있는 동물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했다; 수영은 잘하지 못하였고, 물위에 떠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다 밑 바닥에서 기어 다녔으며, 나중에 나타난 천천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자아-보호로 동그랗게 말아졌다. 그것들은 2인치 내지 1피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그리고 “진흙을 먹는” 네 가지의 종류들이 있었다. 주로 무생물체를 먹고살았던 “진흙을 먹는” 종류의 능력은—존재 가능했던 최후의 다세포 동물이면서—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크게 번성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 지질학자들이 캄브리아기로 구분하는 5천만 년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의 긴 기간 끝에 나타난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풍경은 이상(以上)과 같았다.

제 2 장. 제 1차 대륙 홍수—무척추(無脊椎) 동물 기

이 시기의 특징인 일시적 대륙 융기와 침강 현상은 모두 점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으며, 화산 활동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 연속적인 대륙 융기와 침강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아시아 대륙의 모체가 되는 육지의 역사는 다른 땅 덩어리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대륙은 침수 현상을 여러 번 겪었으며, 그때마다 가라앉는 방향이 틀렸고, 초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대륙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퇴적암 형성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 대륙은 다른 모든 땅 덩어리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50,000,000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 위에 대(大)홍수기의 시작됨이 보였다. 땅 덩어리들은 반복하여 물로 뒤덮였으며; 얕기는 하지만 넓게 분포되어 흔들거리는 내륙 바다 수면 위로, 연안에 있는 구릉지들만이 솟아올라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특색은 세 번에 걸친 주요 홍수들이었지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대륙들이 다시 융기되었고, 전체 육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15% 정도 더 컸다. 카리브 해 지역은 아주 높이가 솟아올랐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반면 육지의 유동은 적었기 때문이었다.

340,000,000년 전에,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광활한 육지가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세계 전역의 해양의 물들이 전체적으로 뒤섞였다. 이 때 거대한 석회암기가 있었으며, 이 때 형성된 암석 대부분은 석회 성분을 분비하는 해초들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수백만 년이 흐른 뒤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부분이 물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서반구(西半球)에서는 태평양의 한 지류만이 현재의 록키산맥과 멕시코 지역에 남아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이 다시 가

living creatures. They were sexed animals and existed in many forms; being poor swimmers, they sluggishly floated in the water or crawled along the sea bottoms, curling up in self-protection when attacked by their later appearing enemies. They grew in length from two inches to one foot and developed into four distinct groups: carnivorous, herbivorous, omnivorous, and “mud eaters.” The ability of the latter group largely to subsist on inorganic matter — being the last multicelled animal that could — explains their great increase and long survival.

59:1.20 (674.6) This was the biogeologic picture of Urantia at the end of that long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embracing fifty million years, designated by your geologists as the *Cambrian*.

2. THE FIRST CONTINENTAL FLOOD STAGE THE INVERTEBRATE-ANIMAL AGE

59:2.1 (674.7) The periodic phenomena of land elevation and land sinking characteristic of these times were all gradual and nonspectacular, being accompanied by little or no volcanic action. Throughout all of these successive land elevations and depressions the Asiatic mother continent did not fully share the history of the other land bodies. It experienced many inundations, dipping first in one direction and then another, more particularly in its earlier history, but it does not present the uniform rock deposits which may be discovered on the other continents. In recent ages Asia has been the most stable of all the land masses.

59:2.2 (675.1) 350,000,000 years ago saw the beginning of the great flood period of all the continents except central Asia. The land masses were repeatedly covered with water; only the coastal highlands remained above these shallow but widespread oscillatory inland seas. Three major inundations characterized this period, but before it ended, the continents again arose, the total land emergence being fifteen per cent greater than now exists. The Caribbean region was highly elevated. This period is not well marked off in Europe because the land fluctuations were less, while the volcanic action was more persistent.

59:2.3 (675.2) 340,000,000 years ago there occurred another extensive land sinking except in Asia and Australia. The waters of the world's oceans were generally commingled. This was a great limestone age, much of its stone being laid down by lime-secreting algae.

59:2.4 (675.3) A few million years later large portions of the American continents and Europe began to emerge from the water. In the Western Hemisphere only an arm of the Pacific Ocean remained over Mexico and the present Rocky

라앉기 시작하였다.

330,000,000년 전에, 많은 대부분의 대륙이 다시 물위로 올라오면서, 비교적 고요한 시간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지역이 예외였는데,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화산이 켄터키 동부 지역에서 폭발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단일 화산 활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 중의 하나였다. 화산재가 500 입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15내지 20피트의 두께로 쌓일 정도였다.

320,000,000년 전에,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세 번째의 주요 홍수가 발생하였다.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에 의해서 물속에 잠겼던 땅들 전체를 이번의 홍수에 의한 물로 다시 뒤덮었으며,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 사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북아메리카 동부와 서부 유럽은 물 아래로 10,000내지 15,000 피트 깊이로 잠겼다.

31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육지들이 다시 잘 올라와 있었다. 멕시코가 창발 되었고, 그로서 걸프 해가 창조되어, 그 이후로 계속 그 정체성은 유지되었다.

이 기간에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온 세계는 다시 고요해졌고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으며; 기후는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육식 식물들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식물 화석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생명 원형들이 잘 개발되었다.

식물로부터 동물로 변환되는 일이 이미 발생되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였지만, 개별적인 동물 유기체가 진화되는 엄청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척추를 가진 종류보다는 열등한 각종 생명들이 이 시기 동안 퇴적된 암석 속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해양 동물 군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은 모두 해양 유기체들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땅 속에 숨어 있는 약간의 지렁이 종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육상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들도 아직 대륙에 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숨을 쉬는 생물체들이 실존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보다 원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 생명에 의존하여 실존할 수밖에 없었다.

삼엽충들은 여전히 풍부하게 있었다. 이러한 작은 동물들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오늘날 존재하는 갑각류들의 원조였다. 삼엽충들 중의 일부는 25 내지 4,000개의 작은 구멍을 갖고 있었다; 또 어떤 것들은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다른 몇 가지 형태의 무척추동물들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서 철저히 사라지게 되었다.

Mountain regions, but near the close of this epoch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again began to sink.

59:2.5 (675.4) 330,000,000 years ago marks the beginning of a time sector of comparative quiet all over the world, with much land again above water. The only exception to this reign of terrestrial quiet was the eruption of the great North American volcano of eastern Kentucky, one of the greatest single volcanic activities the world has ever known. The ashes of this volcano covered five hundred square miles to a depth of from fifteen to twenty feet.

59:2.6 (675.5) 320,000,000 years ago the third major flood of this period occurred. The waters of this inundation covered all the land submerged by the preceding deluge, while extending farther in many directions all over the Americas and Europe. Easter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were from 10,000 to 15,000 feet under water.

59:2.7 (675.6) 310,000,000 years ago the land masses of the world were again well up excepting the southern parts of North America. Mexico emerged, thus creating the Gulf Sea, which has ever since maintained its identity.

59:2.8 (675.7) The life of this period continues to evolve. The world is once again quiet and relatively peaceful; the climate remains mild and equable; the land plants are migrating farther and farther from the seashores. The life patterns are well developed, although few plant fossils of these times are to be found.

59:2.9 (675.8) This was the great age of individual animal organismal evolution, though many of the basic changes, such as the transition from plant to animal, had previously occurred. The marine fauna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every type of life below the vertebrate scale was represented in the fossils of those rocks which were laid down during these times. But all of these animals were marine organisms. No land animals had yet appeared except a few types of worms which burrowed along the seashores, nor had the land plants yet overspread the continents; there was still too much carbon dioxide in the air to permit of the existence of air breathers. Primarily, all animals except certain of the more primitive on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dependent on plant life for their existence.

59:2.10 (676.1) The trilobites were still prominent. These little animals existed in tens of thousands of patterns and were the predecessors of modern crustaceans. Some of the trilobites had from twenty-five to four thousand tiny eyelets; others had aborted eyes. As this period closed, the trilobites shared domination of the seas with several other forms of invertebrate life. But they utterly perished during the beginning of the next

석회(石灰)-분비 조류(藻類)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산호들의 초기 조상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다 벌레들이 풍성하였고, 멸종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해파리들이 있었다. 산호들과 후기 유형의 해면(海綿)들이 진화되었다. 두족류(頭足類)들이 잘 발달되었고, 그것들은 오늘날의 진주색의 앵무조개, 낙지, 뱀오징어, 오징어 등으로 남아 있다.

수많은 다양한 외피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의 껍질은 후대의 동물들이 가졌던 것처럼 방어 목적에 충분할 정도는 못되었다. 고대의 바닷물 속에는 달팽이 류가 생겨났으며, 그들 중에는 홀겹의 바다달팽이, 고둥, 그리고 다른 달팽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간에 있는 수백만 년의 기간에는 그 당시 모습대로 쌍각조개류 동물들이 생겨났으며, 긴 조개, 대합, 굴 그리고 가리비 등이 포용되어 있었다. 판막(瓣膜) 껍질을 가진 유기체들 역시 진화되어 갔고, 이 완족류(腕足類)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속에 살고 있었다; 여닫이 모양, 톱니 모양,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보호막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해양 생명의 두 번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며,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오르도비스기로 분류한다.

제 3 장. 제 2차 대 홍수—산호기—완족류기

300,000,000년 전에, 대륙이 또 한 번 물에 잠기는 긴 기간이 시작되었다. 고대의 실루리아 계(系) 바다들의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의 침식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 만(灣)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륙이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안선에는 퇴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바다에는 석회질 껍질을 가진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이 조개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점차 매우 두꺼운 석회암 층을 이루었다. 이것이 넓게 분포된 최초의 석회암 퇴적층이며, 실천적으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지만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층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약 1,000피트에 이르지만, 이 퇴적층들의 대부분은 기울어짐, 솟아오름, 그리고 단층 작용에 의해서 크게 변형되었고, 많은 부분은 수정, 이판암, 대리석 등으로 변하였다.

불타는 바위들과 용암은 이 기간의 암석층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큰 화산이 폭발하였던 남부 유럽과 동부의 메인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린 퀘벡의 지층에서만 예외적으로 발견된다. 화산 활동은 거의 지나간 상태였다. 물에 의한 퇴적작용이 최고점에 달해 있었고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period.

59:2.11 (676.2) Lime-secreting algae were widespread. There existed thousands of species of the early ancestors of the corals. Sea worms were abundant, and there were many varieties of jellyfish which have since become extinct. Corals and the later types of sponges evolved. The cephalopods were well developed, and they have survived as the modern pearly nautilus, octopus, cuttlefish, and squid.

59:2.12 (676.3) There were many varieties of shell animals, but their shells were not then so much needed for defensive purposes as in subsequent ages. The gastropods were present in the waters of the ancient seas, and they included single-shelled drills, periwinkles, and snails. The bivalve gastropods have come on down through the intervening millions of years much as they then existed and embrace the mussels, clams, oysters, and scallops. The valve-shelled organisms also evolved, and these brachiopods lived in those ancient waters much as they exist today; they even had hinged, notched, and other sorts of protective arrangements of their valves.

59:2.13 (676.4) So ends the evolutionary story of the second great period of marine life, which is known to your geologists as the *Ordovician*.

3. THE SECOND GREAT FLOOD STAGE THE CORAL PERIOD — THE BRACHIOPOD AGE

59:3.1 (676.5) 300,000,000 years ago another great period of land submergence began. The southward and northward encroachment of the ancient Silurian seas made ready to engulf most of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land was not elevated far above the sea so that not much deposition occurred about the shore lines. The seas teemed with lime-shelled life, and the falling of these shells to the sea bottom gradually built up very thick layers of limestone. This is the first widespread limestone deposit, and it covers practically all of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only appears at the earth's surface in a few places. The thickness of this ancient rock layer averages about one thousand feet, but many of these deposits have since been greatly deformed by tilting, upheavals, and faulting, and many have been changed to quartz, shale, and marble.

59:3.2 (676.6) No fire rocks or lava are found in the stone layers of this period except those of the great volcanoes of southern Europe and eastern Maine and the lava flows of Quebec. Volcanic action was largely past. This was the height of great water deposition; there was little or no mountain building.

거의 없었다.

290,000,000년 전에, 바다는 대륙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주변의 해양들의 바닥이 가라앉고 있었다. 대륙 덩어리들은 다시 침강될 때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모든 대륙들마다 초기의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지구의 지각 변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스코틀랜드를 거쳐 스피츠베르겐으로 이어지는 칼레도니아 산맥이었다.

천연 가스, 석유, 아연, 그리고 납의 대부분은 이때에 형성된 퇴적층에서 발견되며, 천연 가스와 석유는 앞에 있었던 육지의 침수기 동안에 식물과 동물 성분들이 엄청나게 퇴적된 것으로부터 형성되었고, 반면에 광물질 퇴적층은 완만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된 것임을 나타낸다. 바위 소금의 퇴적층들 대부분은 이 기간에 속한다.

삼엽충들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보다 큰 연체 동물들 혹은 두족류(頭足類)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동물들은 15피트의 길이까지 자랐으며 직경은 1푸트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류들은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다 생명의 통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에 큰 화산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다. 이번에 지중해 해구(海溝) 그리고 특별히 영국 섬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광대한 화산 폭발은 지난 수십 억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 때 분출하여 영국 섬들 지역을 덮었던 용암은 오늘날 25,000피트 두께의 변형된 용암과 암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암석층들은 얇은 바다 지층 위로 널리 퍼져 나간 간헐적인 용암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퇴적암 층들이 분산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격렬한 지진들이 북 유럽과,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발생되었다.

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의 대륙들 해안을 적시어 씻겼다. 완족류를 비롯한 다른 해양 생명 화석들이 북극 근처의 퇴적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복족류, 완족류, 해면체 동물, 그리고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초들이 계속 증가되었다.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실루리아기 바다들이 남부와 북부 해양의 물들과 다시 섞이면서 두 번째로 진전되는 현상이 있었다. 두족류들이 해양 생명의 주종을 이루었고, 반면에 연관된 형태의 생명들이 점진적으로 발달되고 분화(分化)되었다.

280,000,000년 전에, 대륙들은 두 번째 실루리아기 침수 상태로부터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그 침수기에 퇴적된 바위 층은 북아메리카에서 나이아가라 석회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지

59:3.3 (676.7) 290,000,000 years ago the sea had largely withdrawn from the continents, and the bottoms of the surrounding oceans were sinking. The land masses were little changed until they were again submerged. The early mountain movements of all the continents were beginning, and the greatest of these crustal upheavals were the Himalayas of Asia and the great Caledonian Mountains, extending from Ireland through Scotland and on to Spitzbergen.

59:3.4 (677.1) It is in the deposits of this age that much of the gas, oil, zinc, and lead are found, the gas and oil being derived from the enormous collections of vegetable and animal matter carried down at the time of the previous land submergence, while the mineral deposits represent the sedimentation of sluggish bodies of water. Many of the rock salt deposits belong to this period.

59:3.5 (677.2) The trilobites rapidly declined, and the center of the stage was occupied by the larger mollusks, or cephalopods. These animals grew to be fifteen feet long and one foot in diameter and became masters of the seas. This species of animal appeared *suddenly* and assumed dominance of sea life.

59:3.6 (677.3) The great volcanic activity of this age was in the European sector. Not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had such violent and extensive volcanic eruptions occurred as now took place around the Mediterranean trough and especially in the neighborhood of the British Isles. This lava flow over the British Isles region today appears as alternate layers of lava and rock 25,000 feet thick. These rocks were laid down by the intermittent lava flows which spread out over a shallow sea bed, thus interspersing the rock deposits, and all of this was subsequently elevated high above the sea. Violent earthquakes took place in northern Europe, notably in Scotland.

59:3.7 (677.4) The oceanic climate remained mild and uniform, and the warm seas bathed the shores of the polar lands. Brachiopod and other marine-life fossils may be found in these deposits right up to the North Pole. Gastropods, brachiopods, sponges, and reef-making corals continued to increase.

59:3.8 (677.5) The close of this epoch witnesses the second advance of the Silurian seas with another commingling of the water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oceans. The cephalopods dominate marine life, while associated forms of life progressively develop and differentiate.

59:3.9 (677.6) 280,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s had largely emerged from the second Silurian inundation. The rock deposits of this submergence are known in North America as Niagara limestone

층 위로 나이가가라 폭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암석층은 동부의 산맥들로부터 미시시피 계곡 지역까지 이르고 있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한 서부 쪽으로는 더 이상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일부의 지층들이 캐나다, 남아메리카의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 퍼져 있으며, 이러한 나이가가라 계통의 지층의 두께는 약 600피트에 달한다. 나이가가라 퇴적층 바로 위에서 역암과 이판암 그리고 암염(巖鹽)의 퇴적물이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에 있다. 이것은 2차 침전물들이 쌓인 것이다. 이 소금은 번갈아 가면서 바다를 향해 벌어져 있던 거대한 초호(草蒿) 속에 들어 있다가 잘려나간 후에는 증발 현상이 발생하면서 용액 속에 다른 물질과 함께 소금이 남아 있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 층이 70 피트의 두께를 이루기도 한다.

기후는 일정하고 온화했으며, 바다 화석들이 북극 지방에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다는 소금기가 과도하게 되어서 생명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기간이 끝나가면서, 극피동물(棘皮動物)—돌 백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백합 모양의 석회암 퇴적층에 의해서 증명된다. 삼엽충은 거의 사라졌고, 연체동물이 바다를 계속 지배하였다; 산호초 형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다 적당한 지역에서 원시 형태의 물에서 사는 전갈들이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그 직후에, 그리고 갑자기, 진정한 전갈들—실제로 공기 호흡으로 사는 동물—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발전에 의해서, 2,500만년 동안 계속된 제 3차의 해양 생명 기간이 끝나게 되며, 이 기간은 너희 연구원들에게 실루리아기로 알려져 있다.

제 4 장. 대륙 융기 단계—식물성 육지—생명 기간— 어류기

오랫동안에 걸친 육지와 물 사이의 투쟁 속에서, 바다가 비교적 승리를 거두는 기간이 길었지만, 육지가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대륙의 표류는 아직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외에도 실천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땅 덩어리들이 가느다란 지협(地峽)들과, 대륙을 잇는 좁은 육지로 언제나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상태로부터 대륙이 융기되자, 세계가 변화되고 생명이 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끝나게 되었다. 그것은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별거벗고 보잘 것 없던 이전(以前) 시대의 풍경이 무성한 초목으로 옷을 입었고, 최초의 광대한 숲이 곧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가 채야 새며으 초기이 조조 부귀에

because this is the stratum of rock over which Niagara Falls now flows. This layer of rock extends from the eastern mountains to the Mississippi valley region but not farther west except to the south. Several layers extend over Canada, portions of South America, Australia, and most of Europe, the average thickness of this Niagara series being about six hundred feet. Immediately overlying the Niagara deposit, in many regions may be found a collection of conglomerate, shale, and rock salt. This is the accumulation of secondary subsidences. This salt settled in great lagoons which were alternately opened up to the sea and then cut off so that evaporation occurred with deposition of salt along with other matter held in solution. In some regions these rock salt beds are seventy feet thick.

59:3.10 (677.7) The climate is even and mild, and marine fossils are laid down in the arctic regions. But by the end of this epoch the seas are so excessively salty that little life survives.

59:3.11 (677.8) Toward the close of the final Silurian submergence there is a great increase in the echinoderms — the stone lilies — as is evidenced by the crinoid limestone deposits. The trilobites have nearly disappeared, and the mollusks continue monarchs of the seas; coral-reef formation increases greatly. During this age, in the more favorable locations the primitive water scorpions first evolve. Soon thereafter, and *suddenly*, the true scorpions — actual air breathers — make their appearance.

59:3.12 (678.1) These developments terminate the third marine-life period, covering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Silurian*.

4. THE GREAT LAND-EMERGENCE STAGE THE VEGETATIVE LAND-LIFE PERIOD THE AGE OF FISHES

59:4.1 (678.2) In the agelong struggle between land and water, for long periods the sea has been comparatively victorious, but times of land victory are just ahead. And the continental drifts have not proceeded so far but that, at times, practically all of the land of the world is connected by slender isthmuses and narrow land bridges.

59:4.2 (678.3) As the land emerges from the last Silurian inundation, an important period in world development and life evolution comes to an end. It is the dawn of a new age on earth. The naked and unattractive landscape of former times is becoming clothed with luxuriant verdure, and the first magnificent forests will soon appear.

59:4.3 (678.4) The marine life of this age was very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든 유형들이 자유롭게 섞이고 관계적-연합되었다. 완족류는 일찍이 최고로 번성되는 시기를 맞았으며, 절지동물(節肢動物)들이 그 뒤를 이었고, 만각류(蔓脚類)의 갑각동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사건은 어류(魚類)의 갑작스러운 출현이었다. 그리하여 어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는 동물에서의 척추동물 유형으로의 특징을 이룬다.

270,000,000년 전에, 대륙들이 모두 물위로 올라왔다. 수십억 년 동안 그토록 큰 육지가 동시에 물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다; 전체 지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육지-용기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였다.

5백만 년 후에는, 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대륙이 잠시 동안 물에 잠겼고, 북아메리카에서는 한동안의 침수가 거의 끝났으며; 그 결과로 석회암 층이 500내지 5,000피트 두께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본기의 다양한 바다들이 매 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어,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북극의 내륙 바다는 북쪽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과 연결되었다.

260,000,000년 전에, 대륙이 함몰되는 이 시기가 끝나게 될 때, 북아메리카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와 걸프의 물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바닷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잠겼다. 최초의 데보니아기 홍수의 후반기 동안 퇴적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000피트에 달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었던 산호초를 통하여 그 내륙 바다들이 깨끗하고 알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산호초 퇴적층은 루이스빌과 켄터키 근처의 오하이오 강 강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약 100피트의 두께이고,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산호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산호초 형성은 캐나다와 북부 유럽을 거쳐 북극해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침수기 이후에, 많은 해안선들이 적지 않게 융기하여, 초기의 퇴적층들이 진흙이나 이판암으로 뒤덮였다. 데보니아기 퇴적층들 중 하나의 특색을 이루는 붉은 색의 사암층(砂巖層)도 역시 그 속에 있으며, 이러한 붉은 색의 지층은 지구 표면 대부분에 퍼져 있고, 남-북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러한 붉은 색 지층은 건조 상태 혹은 반(半)건조 상태를 암시하지만, 이 신(新)시대의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하였다.

이 기간 전체 동안, 신시내티 섬의 남동쪽 지역은 물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 섬들을 포함하여 유럽 서부 지역 대부분은 침수되었다. 웨일즈와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데보니아기에 형성된 암석층은 20,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The marine life of this age was very diverse due to the early species segregation, but later on there was free commingling and association of all these different types. The brachiopods early reached their climax, being succeeded by the arthropods, and barnacles made their first appearance. But the greatest event of all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fish family. This became the age of fishes, that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characterized by the vertebrate type of animal.

59:4.4 (678.5) 270,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s were all above water.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not so much land had been above water at one time; it was one of the greatest land-emergence epochs in all world history.

59:4.5 (678.6) Five million years later the land areas of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Africa, northern Asia, and Australia were briefly inundated, in North America the submergence at one time or another being almost complete; and the resulting limestone layers run from 500 to 5,000 feet in thickness. These various Devonian seas extended first in one direction and then in another so that the immense arctic North American inland sea found an outlet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northern California.

59:4.6 (678.7) 260,000,000 years ago, toward the end of this land-depression epoch, North America was partially overspread by seas having simultaneous connection with the Pacific, Atlantic, Arctic, and Gulf waters. The deposits of these later stages of the first Devonian flood average about one thousand feet in thickness. The coral reefs characterizing these times indicate that the inland seas were clear and shallow. Such coral deposits are exposed in the banks of the Ohio River near Louisville, Kentucky, and are about one hundred feet thick, embracing more than two hundred varieties. These coral formations extend through Canada and northern Europe to the arctic regions.

59:4.7 (678.8) Following these submergences, many of the shore lines were considerably elevated so that the earlier deposits were covered by mud or shale. There is also a red sandstone stratum which characterizes one of the Devonian sedimentations, and this red layer extends over much of the earth's surface, being found in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Russia, China, Africa, and Australia. Such red deposits are suggestive of arid or semiarid conditions, but the climate of this epoch was still mild and even.

59:4.8 (679.1) Throughout all of this period the land southeast of the Cincinnati Island remained well above water. But very much of western Europe, including the British Isles, was submerged. In Wales, Germany, and other places in Europe the Devonian rocks are 20,000 feet thick.

250,000,000년 전에는 척추동물인 어류들의 출현이 목격되었는데, 모든 이전-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였다.

절지동물이나 갑각류 동물은 첫 번째 척추동물의 원조들이었다. 어류가 나타나기 위하여 두 종류의 변형된 절지동물 원조들이 있었다; 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긴 몸체를 가졌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척추가 없고 입이 없는 물고기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인 유형들은 동물 세계의 최초 척추동물이 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되자 재빨리 멸종되었다.

이 기간에 속하는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 대부분은 25피트에서 30피트 길이였고 어떤 것들은 이빨이 있었다; 지금-현재 볼 수 있는 상어들은 이러한 고대의 물고기들이 살아남은 것들이다. 허파와 껍질을 가진 물고기들이 진화의 절정에 도달하였고, 이 신(新)시대가 끝나기 전에, 물고기들은 민물과 바닷물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

틀림없는 물고기 이빨의 뼈대와 해골들이,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태평양의 수많은 보호된 만(灣)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땅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곳의 해안을 따라 풍부한 화석 층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 위에는 육상 식물들이 새로운 구조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거의 없었다. 이때부터, 그리고 갑자기, 양치류 족이 풍성하게 나타나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솟아오르는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2피트 두께와 40피트 높이의 나무 유형이 곧 개발되었고; 나중에는 잎들이 진화되었으나, 이러한 초기의 품종들은 초보적인 잎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보다 작은 초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초기에 나타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부식되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대륙이 융기될 때, 북아메리카는 그린란드 쪽으로 향한 반도(半島)들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란드는 그 얼음 층 밑에 이러한 초기의 육상 식물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240,000,000년 전에,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육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이 침강은 데보니아기의 홍수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것이었고 맨 나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북극해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 흘러들었으며, 대서양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고, 남부의 태평양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덮었다. 이번에 일어난 범람은 매우 서서히 발생하였고, 퇴각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일어났다. 허드슨 강 서쪽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캐츠킬 산맥은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신(新)시대의 가장 큰 지질학적 기념물 중의 하나이다.

59:4.9 (679.2) 250,000,000 years ago witnessed the appearance of the fish family, the vertebr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all prehuman evolution.

59:4.10 (679.3) The arthropods, or crustaceans, were the ancestors of the first vertebrates. The forerunners of the fish family were two modified arthropod ancestors; one had a long body connecting a head and tail, while the other was a backboneless, jawless prefish. But these preliminary types were quickly destroyed when the fishes, the first vertebrates of the animal world, made their sudden appearance from the north.

59:4.11 (679.4) Many of the largest true fish belong to this age, some of the teeth-bearing varieties being twenty-five to thirty feet long; the present-day sharks are the survivors of these ancient fishes. The lung and armored fishes reached their evolutionary apex, and before this epoch had ended, fishes had adapted to both fresh and salt waters.

59:4.12 (679.5) Veritable bone beds of fish teeth and skeletons may be found in the deposits laid down toward the close of this period, and rich fossil beds are situated along the coast of California since many sheltered bays of the Pacific Ocean extended into the land of that region.

59:4.13 (679.6) The earth was being rapidly overrun by the new orders of land vegetation. Heretofore few plants grew on land except about the water's edge. Now, and suddenly, the prolific fern family appeared and quickly spread over the face of the rapidly rising land in all parts of the world. Tree types, two feet thick and forty feet high, soon developed; later on, leaves evolved, but these early varieties had only rudimentary foliage. There were many smaller plants, but their fossils are not found since they were usually destroyed by the still earlier appearing bacteria.

59:4.14 (679.7) As the land rose, North America became connected with Europe by land bridges extending to Greenland. And today Greenland holds the remains of these early land plants beneath its mantle of ice.

59:4.15 (679.8) 240,000,000 years ago the land over parts of both Europe and North and South America began to sink. This subsidence marked the appearance of the last and least extensive of the Devonian floods. The arctic seas again moved southward over much of North America, the Atlantic inundated a large part of Europe and western Asia, while the southern Pacific covered most of India. This inundation was slow in appearing and equally slow in retreating. The Catskill Mountains along the west bank of the Hudson River are one of the largest geologic monuments of this epoch to be found on the surface of North America.

2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계속 퇴각하였다.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은 물위에 있었고, 거대한 화산 활동이 세인트로렌스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몬트리올에 있는 로알 산은 이러한 화산들 중 하나가 침식되어 폭 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이 신(新)시대 전체의 퇴적층은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곳에는 서스케하나 강이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러한 연속적인 지층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그 층의 두께는 13,000피트를 넘는다.

대륙들의 융기가 계속되었고, 대기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되었다. 지구는 100피트 높이에 달하는 양치류 식물의 광활한 숲과, 그 당시의 독특한 나무들로 뒤덮였고, 숲은 고요하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는데, 이것은 그 나무들이 잎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가장 긴 기간의 해양-생명 진화 기간, 어류 시대가 끝을 맺게 되었다. 이 기간의 세계 역사는 거의 5,000만 년에 달하였다; 너희 연구진들에게는 데보니아기로 알려져 있다.

제 5 장. 지각-이동 단계—양치류-삼림의 석탄기— 개구리 시대

앞에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물고기의 출현은 해양-생명 진화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 시점부터 육지 생명의 진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초의 육상 동물들의 출현을 위해 거의 이상적으로 설치된 무대를 열어 주었다.

22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대륙들이 물위로 올라와 있었다. 육지는 호화로운 식물들로 뒤덮였으며; 이 시기는 정말로 양치류 시대라고 할 정도였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었지만 농도가 줄어들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아메리카의 중앙 부분이 침수되었고, 두 개의 거대한 내륙 바다가 조성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지대들은 현재의 해변 바로 밖에 있었다. 이윽고 이들 두 바다들은 서로 연합되었고, 서로 달랐던 생명 형태들이 섞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양 동물군(群) 연합은 해양 생명에게 신속하고 전 세계적인 쇠퇴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육상-생명 기간이 열리도록 하였다.

210,000,000년 전에, 따뜻한 온도의 북극해 바닷물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덮었다. 남극 지방의 물은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침범하였고,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높이 솟아 올랐다.

59:4.16 (679.9) 230,000,000 years ago the seas were continuing their retreat. Much of North America was above water, and great volcanic activity occurred in the St. Lawrence region. Mount Royal, at Montreal, is the eroded neck of one of these volcanoes. The deposits of this entire epoch are well shown in the Appalachian Mountains of North America where the Susquehanna River has cut a valley exposing these successive layers, which attained a thickness of over 13,000 feet.

59:4.17 (680.1) The elevation of the continents proceeded, and the atmosphere was becoming enriched with oxygen. The earth was overspread by vast forests of ferns one hundred feet high and by the peculiar trees of those days, silent forests; not a sound was heard, not even the rustle of a leaf, for such trees had no leaves.

59:4.18 (680.2) And thus drew to a close one of the longest periods of marine-life evolution, *the age of fishes*. This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lasted almost fifty million years; it has become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Devonian*.

5. THE CRUSTAL-SHIFTING STAGE THE FERN-FOREST CARBONIFEROUS PERIOD THE AGE OF FROGS

59:5.1 (680.3) The appearance of fish during the preceding period marks the apex of marine-life evolution. From this point onward the evolution of land lif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And this period opens with the stage almost ideally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first land animals.

59:5.2 (680.4) 220,000,000 years ago many of the continental land areas, including most of North America, were above water. The land was overrun by luxurious vegetation; this was indeed the *age of ferns*. Carbon dioxide was still present in the atmosphere but in lessening degree.

59:5.3 (680.5) Shortly thereafter the central portion of North America was inundated, creating two great inland seas. Both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al highlands were situated just beyond the present shore lines. These two seas presently united, commingling their different forms of life, and the union of these marine fauna marked the beginning of the rapid and world-wide decline in marine life and the opening of the subsequent land-life period.

59:5.4 (680.6) 210,000,000 years ago the warm-water arctic seas covered most of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south polar waters inundated South America and Australia, while both Africa and Asia were highly elevated.

바다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진화적 발전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최초의 육상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들 중에는 땅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양서류들은 절지동물에서 발달된 것이었으며, 절지동물들의 부레가 허파로 진화하였다.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로부터 육상 달팽이들과 전갈들 그리고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 오늘날의 개구리들은 여전히 물속에 알을 낳고 있으며, 새끼 때에는 작은 물고기처럼, 올챙이로 존재한다. 이 기간은 개구리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직후에, 곤충들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메뚜기들도 함께 나타났으며, 곧 전 세계의 대륙에 퍼졌다. 잠자리는 폭이 30인치나 되었다. 1,000여 종에 이르는 바퀴벌레들이 생겼고, 어떤 것들은 4인치 길이까지 자랐다.

두 가지의 극피동물들이 특별하게 잘 발생되었으며, 그것들은 화석이 되어 실체 안에서 이 신(新)시대를 잘 안내하고 있다. 조개를 먹는 큰 상어들도 역시 매우 잘 진화되었으며, 500만 년 이상 해양을 지배하였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하였다; 해양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민물고기가 나타났고 삼엽충은 거의 소멸되었다. 산호초들이 줄어들었고, 석회암의 대부분은 바다나리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보다 아름다운 건축용 석회암들은 이 기간 동안 퇴적된 것이다.

대부분의 내륙 바다들 속에 있던 물은 석회를 비롯한 다른 광물질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많은 해양 종족들의 진화와 발전을 크게 방해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광대한 암석 퇴적 현상의 결과로 바다가 깨끗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연과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석탄기의 퇴적층들은 500내지 2,000피트의 두께에 이르며, 사암과 이관암 그리고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많은 자갈과 하구(河口) 퇴적물과 함께, 육상 그리고 해상 동식물의 화석들이 들어 있다.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석탄이 비교적 오래된 이 지층에서 발견된다.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이 퇴적층들은 북아메리카에 쌓여 있는 지층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가 융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고, 바닷물이 전에 들어와 있던 지역의 반 정도를 덮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의 침수였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곧 물위로 올라왔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를 통하여 여전히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보스게스와 흑림 그리고 우랄 산맥

59:5.5 (680.7) When the seas were at their height, a new evolutionary development *suddenly* occurred. Abruptly, the first of the land animals appeared. There were numerous species of these animals that were able to live on land or in water. These air-breathing amphibians developed from the arthropods, whose swim bladders had evolved into lungs.

59:5.6 (680.8) From the briny waters of the seas there crawled out upon the land snails, scorpions, and frogs. Today frogs still lay their eggs in water, and their young first exist as little fishes, tadpoles. This period could well be known as the *age of frogs*.

59:5.7 (680.9) Very soon thereafter the insects first appeared and, together with spiders, scorpions, cockroaches, crickets, and locusts, soon overspread the continents of the world. Dragon flies measured thirty inches across. One thousand species of cockroaches developed, and some grew to be four inches long.

59:5.8 (680.10) Two groups of echinoderms became especially well developed, and they are in reality the guide fossils of this epoch. The large shell-feeding sharks were also highly evolved, and for more than five million years they dominated the oceans. The climate was still mild and equable; the marine life was little changed. Fresh-water fish were developing and the trilobites were nearing extinction. Corals were scarce, and much of the limestone was being made by the crinoids. The finer building limestones were laid down during this epoch.

59:5.9 (681.1) The waters of many of the inland seas were so heavily charged with lime and other minerals as greatly to interfere with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many marine species. Eventually the seas cleared up as the result of an extensive stone deposit, in some places containing zinc and lead.

59:5.10 (681.2) The deposits of this early Carboniferous age are from 500 to 2,000 feet thick, consisting of sandstone, shale, and limestone. The oldest strata yield the fossils of both land and marine animals and plants, along with much gravel and basin sediments. Little workable coal is found in these older strata. These depositions throughout Europe are very similar to those laid down over North America.

59:5.11 (681.3) Toward the close of this epoch the land of North America began to rise. There was a short interruption, and the sea returned to cover about half of its previous beds. This was a short inundation, and most of the land was soon well above water. South America was still connected with Europe by way of Africa.

59:5.12 (681.4) This epoch witnessed the beginning of

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대에 형성된 다른 산들의 흔적들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

200,000,000년 전에, 석탄기 중에서 실제로 활동적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가 있기 전 2천만 년 동안 전기 석탄 퇴적층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때부터는 더욱 광대한 석탄 형성 활동이 진행되었다. 실제적인 석탄 퇴적 신(新)시대의 길이는 2천 5백만 년이 조금 넘는다.

육지는 해양 바닥의 활동에 의해서 바다물 높이가 바뀔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연안에 있는 늪지대들의 풍성한 초목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구 지각의 불안정 상태—육지의 침강과 융기—는 광대한 석탄 퇴적층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 기간이 석탄기로 알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기후는 지구 전체가 온화하였다.

석탄층들은 이판암과 암석 그리고 역암 등과 번갈아 가면서 형성되어 있다. 중부와 동부의 미국에 퍼져 있는 이러한 석탄 지대는 40피트 내지 50피트의 두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퇴적층들 대부분은 나중에 육지가 융기되는 동안 물에 씻겨 내려갔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들어있는 지층이 18,000피트의 두께를 갖는 곳도 있다.

현재의 석탄 지대 밑에 있는 진흙 속에서 성장하던 나무뿌리들이 현존된다는 사실은, 그 석탄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석탄은 이와 같은 먼 옛날 연안에 있던 늪지대와 습지에서 자라는 울창한 초목이 물의 보호 작용과 압력에 의한 변형으로 남아있는 물질이다. 석탄층에는 가스나 석유도 들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장이 멈춘 식물의 잔여물인 토탄(土炭) 지대는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갖게 될 때 석탄 유형으로 바뀐다. 무연탄은 다른 석탄보다 더 많은 압력과 열을 받을 때 형성된다.

여러 지층들로 형성된 북아메리카의 석탄층들은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몇 번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며, 일리노이에서의 10개로부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20개, 앨라배마에서는 35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7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물과 바닷물의 화석들이 석탄지대에서 발견된다.

이 신(新)시대 전체를 통하여 남-북 아메리카의 산들이 태동되었고, 안데스 산맥과 원시 형태의 남부 록키산맥이 융기되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높은 지대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매우 침식되고 가라앉게 되어 두 해양의 해안선들은 대략 현재의 위치까지 퇴각하였다. 이 침수기간에 퇴적된 층은 약 1,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19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석탄기 바다가 현재의 록키산맥 지역까지 서쪽으로 확장되

the Vosges, Black Forest, and Ural mountains. Stumps of other and older mountains are to be found all over Great Britain and Europe.

59:5.13 (681.5) 200,000,000 years ago the really active stages of the Carboniferous period began. For twenty million years prior to this time the earlier coal deposits were being laid down, but now the more extensive coal-formation activities were in process. The length of the actual coal-deposition epoch was a little over twenty-five million years.

59:5.14 (681.6) The land was periodically going up and down due to the shifting sea level occasioned by activities on the ocean bottoms. This crustal uneasiness — the settling and rising of the land — in connection with the prolific vegetation of the coastal swamps, contributed to the production of extensive coal deposits, which have caused this period to be known as the *Carboniferous*. And the climate was still mild the world over.

59:5.15 (681.7) The coal layers alternate with shale, stone, and conglomerate. These coal beds over central and eastern United States vary in thickness from forty to fifty feet. But many of these deposits were washed away during subsequent land elevations. In some parts of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coal-bearing strata are 18,000 feet in thickness.

59:5.16 (681.8) The presence of roots of trees as they grew in the clay underlying the present coal beds demonstrates that coal was formed exactly where it is now found. Coal is the water-preserved and pressure-modified remains of the rank vegetation growing in the bogs and on the swamp shores of this faraway age. Coal layers often hold both gas and oil. Peat beds, the remains of past vegetable growth, would be converted into a type of coal if subjected to proper pressure and heat. Anthracite has been subjected to more pressure and heat than other coal.

59:5.17 (681.9) In North America the layers of coal in the various beds, which indicate the number of times the land fell and rose, vary from ten in Illinois, twenty in Pennsylvania, thirty-five in Alabama, to seventy-five in Canada. Both fresh- and salt-water fossils are found in the coal beds.

59:5.18 (682.1) Throughout this epoch the mountains of North and South America were active, both the Andes and the southern ancestral Rocky Mountains rising. The great Atlantic and Pacific high coastal regions began to sink, eventually becoming so eroded and submerged that the coast lines of both oceans withdrew to approximately their present positions. The deposits of this inundation average about one thousand feet in thickness.

59:5.19 (682.2) 190,000,000 years ago witnessed a westward extension of the North American

는 현상이 있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안선 지역이 변동을 일으키는 이 시기 동안 연안지대가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면서,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 석탄이 여러 층으로 계속 쌓였다.

180,000,000년 전에, 석탄기가 끝나게 되며, 그 동안에 세계 전역—유럽,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들—에 석탄이 형성되었다. 석탄-형성기가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계곡 동쪽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대부분은 그 후로 계속 해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육지-융기 기간은 북아메리카, 현재 아팔라치아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되었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산이-형성되는 지역들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동부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그린란드 대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육지가 융기되자, 그 전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성 기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보다 기온이 낮고 변화가 많은 대륙성 기후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식물들은 씨를 맺었고, 바람에 의해서 먼 곳으로 넓게 퍼져갈 수 있었다. 석탄기의 나무줄기는 보통 직경이 7피트 정도였으며 125피트의 높이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었다. 현대의 양치류들은 아득히 먼 옛 시대의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민물 유기체를 위한 발달의 신(新)시대들이었으며; 그 전에 있었던 해양 생명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개구리 그리고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다. 석탄기의 생명 특징은 양치류 식물과 개구리들이다.

제 6 장. 기후 과도기—종자 식물기—생물학적 시 련기

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해양 생명의 중추적인 진화적 발전이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의 육상 동물 시대로 이어지는 변환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생명이 크게 둔화되는 기간이었다. 수천 종류의 해양 생명들이 사라졌고, 육지 위에는 아직 생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시련기였고, 육지 표면과 해양의 깊은 곳에서 생명이 거의 사라지는 시대였다. 긴 해양-생명 시대가 끝날 무렵에, 지구상에는 100,000가지가 넘는 생명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기가 끝날 무렵에는 500가지 미만만이 살아남게 되었

Carboniferous sea over the present Rocky Mountain region, with an outlet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northern California. Coal continued to be laid down throughout the Americas and Europe, layer upon layer, as the coastlands rose and fell during these ages of seashore oscillations.

59:5.20 (682.3) 180,000,000 years ago brought the close of the Carboniferous period, during which coal had been formed all over the world — in Europe, India, China, North Africa, and the Americas. At the close of the coal-formation period North America east of the Mississippi valley rose, and most of this section has ever since remained above the sea. This land-elevation period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mountains of North America, both in the Appalachian regions and in the west. Volcanoes were active in Alaska and California and in the mountain-forming regions of Europe and Asia. Eastern America and western Europe were connected by the continent of Greenland.

59:5.21 (682.4) Land elevation began to modify the marine climate of the preceding ages and to substitute therefor the beginnings of the less mild and more variable continental climate.

59:5.22 (682.5) The plants of these times were spore bearing, and the wind was able to spread them far and wide. The trunks of the Carboniferous trees were commonly seven feet in diameter and often one hundred and twenty-five feet high. The modern ferns are truly relics of these bygone ages.

59:5.23 (682.6) In general, these were the epochs of development for fresh-water organisms; little change occurred in the previous marine life. But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frogs and their many cousins. The life features of the coal age were ferns and frogs.

6. THE CLIMATIC TRANSITION STAGE THE SEED-PLANT PERIOD THE AGE OF BIOLOGIC TRIBULATION

59:6.1 (682.7) This period marks the end of pivotal evolutionary development in marine life and the opening of the transition period leading to the subsequent ages of land animals.

59:6.2 (682.8) This age was one of great life impoverishment. Thousands of marine species perished, and life was hardly yet established on land. This was a time of biologic tribulation, the age when life nearly van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from the depths of the oceans. Toward the close of the long marine-life era there wer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species of living

다.

새로운 이 시대의 특징들은 지구 표면 온도의 하강이나 오랫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되었다기보다는, 통상적이고 이전-존재했던 영향들—바다의 축소와 거대한 땅 덩어리들의 중대되는 융기—이 비정상적으로 병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전(以前) 시대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는 사라졌고, 좀 더 혹한 대륙성 기후가 빨리 발달되었다.

170,000,000년 전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와 조절 현상들이 지구 표면 전체에서 발생되었다. 해양 지대가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세계 전역에서 솟아올랐다. 독립된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와 있었다; 서부 지역은 서서히 솟아 올라왔다. 대륙들은 크고 작은 바다 호수들과 수많은 내륙 바다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들은 좁은 해협으로 해양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환기에 형성된 지층은 1,000내지 7,000피트의 두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육지 융기 기간 동안에 지구의 지각이 광범한 지역에서 접혀지는 현상이 있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오랫동안 연결하고 있었던 대륙들을 포함한 특정 반도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이 시기는 대륙이 융기되는 시대였다.

내륙에 있는 호수들과 바다들의 물이 점차 마르게 되었다. 독립된 산과 지역적인 빙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남반구(南半球)에서 심하였으며, 많은 지역들에서는, 지역적인 얼음 형성 현상으로 인한 빙하 퇴적층이, 후기에 형성된 상부의 석탄 퇴적층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두 가지의 새로운 기후적 요소들—빙하작용과 건조현상—이 나타났다. 지구상의 보다 높은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불모지가 되었다.

기후가 변화하는 이 기간 전체 동안, 육상 식물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씨를 맺는 식물들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은 나중에 증가하는 육상동물 생명에게 보다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곤충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겨울과 건조기의 일시적인 생존 환경 정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면기가 진화적으로 발생되었다.

육상 동물들 중에서 개구리는 전반기 기간 동안 최고점으로 번성하였다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오랫동안의 극심한 시련기에 메마른 웅덩이와 연못 속에서도 오래 살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생존되게 되었다. 개구리가 줄어드는 기간에,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되었다. 그리고 땅 덩어리들이 아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충류 이전(以前) 단계의,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창조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때 대기가 이미 많이 바뀌

things on earth. At the close of this period of transition less than five hundred had survived.

59:6.3 (682.9) The peculiarities of this new period were not due so much to the cooling of the earth's crust or to the long absence of volcanic action as to an unusual combination of commonplace and pre-existing influences — restrictions of the seas and increasing elevation of enormous land masses. The mild marine climate of former times was disappearing, and the harsher continental type of weather was fast developing.

59:6.4 (683.1) 170,000,000 years ago great evolutionary changes and adjustments were taking place over the entire face of the earth. Land was rising all over the world as the ocean beds were sinking. Isolated mountain ridges appeared.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was high above the sea; the west was slowly rising. The continents were covered by great and small salt lakes and numerous inland seas which were connected with the oceans by narrow straits. The strata of this transition period vary in thickness from 1,000 to 7,000 feet.

59:6.5 (683.2) The earth's crust folded extensively during these land elevations. This was a time of continental emergence except for the disappearance of certain land bridges, including the continents which had so long connected South America with Africa and North America with Europe.

59:6.6 (683.3) Gradually the inland lakes and seas were drying up all over the world. Isolated mountain and regional glaciers began to appear, especially over the Southern Hemisphere, and in many regions the glacial deposit of these local ice formations may be found even among some of the upper and later coal deposits. Two new climatic factors appeared — glaciation and aridity. Many of the earth's higher regions had become arid and barren.

59:6.7 (683.4) Throughout these times of climatic change, great variations also occurred in the land plants. The *seed plants* first appeared, and they afforded a better food supply for the subsequently increased land-animal life. The insects underwent a radical change. The *resting stages* evolved to meet the demands of suspended animation during winter and drought.

59:6.8 (683.5) Among the land animals the frogs reached their climax in the preceding age and rapidly declined, but they survived because they could long live even in the drying-up pools and ponds of these far-distant and extremely trying times. During this declining frog age, in Africa, the first step in the evolution of the frog into the reptile occurred. And since the land masses were still connected, this prereptilian creature, an air breather, spread over all the world. By this time the

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숨을 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파충류 이전 단계의 개구리들이 도착된 직후에, 북아메리카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로부터 분리되어 일시적인 독립 상태에 있었다.

해양의 물이 점차적으로 차가워졌으므로 해양 생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시대의 해양 동물들은 세 지역의 적당한 은신처로 잠시 동안 피난해 있었는데: 현재의 멕시코 만 지역, 인도의 갠지스 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시칠리아만이 그곳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해양 종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났으며, 나중에는 바다들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160,000,000년 전에, 육상 동물 생명을 유지 시키기에 적당한 식물들로 육지 대부분이 뒤덮였으며, 기후는 동물이 호흡하기에 이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해양 생명이 축소되는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종류들을 제외한 모든 형태들이 모두 사라지는 생물학적 수난의 시험 기간이 끝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행성 진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들의 급속도로 발전되고 매우 분화된 생명에 대한 시조(始祖)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생물학적 수난기가 끝나는 부분이 너희 학생들에게는 꽤 흥미로 알려져 있고, 행성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의 고생대가 종료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유란시아에서 생명을 키우는 거대한 온상이 그 목적에 잘 협조하였다. 육지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였던, 보다 발달된 육상 동물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함유되기 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가 그 세계에 있는 초기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고 양육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진화가 육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바다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배정된 기원적 무리단의 일원인,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atmosphere had been so changed that it served admirably to support animal respiration. It was soon after the arrival of these pre-reptilian frogs that North America was temporarily isolated, cut off from Europe, Asia, and South America.

59:6.9 (683.6) The gradual cooling of the ocean waters contributed much to the destruction of oceanic life. The marine animals of those ages took temporary refuge in three favorable retreats: the present Gulf of Mexico region, the Ganges Bay of India, and the Sicilian Bay of the Mediterranean basin. And it was from these three regions that the new marine species, born to adversity, later went forth to replenish the seas.

59:6.10 (683.7) 160,000,000 years ago the land was largely covered with vegetation adapted to support land-animal life, and the atmosphere had become ideal for animal respiration. Thus ends the period of marine-life curtailment and those testing times of biologic adversity which eliminated all forms of life except such as had survival value, and which were therefore entitled to function as the ancestors of the more rapidly developing and highly differentiated life of the ensuing ages of planetary evolution.

59:6.11 (684.1) The ending of this period of biologic tribulation, known to your students as the *Permian*, also marks the end of the long *Paleozoic* era, which covers one quarter of the planetary history, two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59:6.12 (684.2) The vast oceanic nursery of life on Urantia has served its purpose. During the long ages when the land was unsuited to support life, before the atmosphere contained sufficient oxygen to sustain the higher land animals, the sea mothered and nurtured the early life of the realm. Now the biologic importance of the sea progressively diminishes as the second stage of evolution begins to unfold on the land.

59:6.13 (684.3) [Present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one of the original corps assigned to Urantia.]

제 60 편 초기 육지-생명 시대의 유란시아

⇨ 059

유란시아 책

061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60 편 초기 육지-생명 시대의 유란시아

섹션

소개

제 1 장. 초기 파충류 시대

제 2 장. 후기 파충류 시대

제 3 장. 백악기(白堊紀)—꽃-식물 시기—
조류 시대

제 4 장. 백악기가 끝남

소개

해양 생명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였던 시대는 끝났다. 땅이 융기되고, 지구의 지각과 해양이 냉각되고, 바다 면적이 줄어들면서 계속 깊어지고, 북반구에 있는 땅이 크게 솟아오르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적도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지역의 세계 기후를 심하게 변화시켰다.

앞에 있었던 신(新)시대가 끝나던 시기는 개구리들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육상 척추동물의 선조인 이것들은 더 이상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살아남은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매우 적은 숫자의 유형들만이, 앞에 있었던 생물학적 변환기의 혹독한 시련기를 건너서 내었다. 씨앗을 맺는 식물들조차도 거의 멸종된 상태였다.

제 1 장. 초기 파충류 시대

이 시대에 침전된 퇴적층은 대개 역암과 이관암 그리고 사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메리카와 유럽에 퍼져 있는 이 퇴적작용의 증거물 전체에 포함된 석고와 적도 층들은 이 대륙들의 기후가 매우 건조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건조 지역들

PAPER 60

URANTIA DURING THE EARLY
LAND-LIFE ER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arly Reptilian Age

2. The Later Reptilian Age

3. The Cretaceous Stage

The Flowering-Plant Period

The Age of Birds

4. The End of the Chalk Period

INTRODUCTION

60:0.1 (685.1) THE era of exclusive marine life has ended. Land elevation, cooling crust and cooling oceans, sea restriction and consequent deepening, together with a great increase of land in northern latitudes, all conspired greatly to change the world's climate in all regions far removed from the equatorial zone.

60:0.2 (685.2) The closing epochs of the preceding era were indeed the age of frogs, but these ancestors of the land vertebrates were no longer dominant, having survived in greatly reduced numbers. Very few types outlived the rigorous trials of the preceding period of biologic tribulation. Even the spore-bearing plants were nearly extinct.

1. THE EARLY REPTILIAN AGE

60:1.1 (685.3) The erosion deposits of this period were mostly conglomerates, shale, and sandstone. The gypsum and red layers throughout these sedimentations over both America and Europe indicate that the climate of these

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지대에 주기적으로 몰아치는 맹렬한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된 거대한 침식작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지층들 속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육상 파충류의 수많은 발자국들이 사암층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1,000피트 두께라고 해도 형성된 적색 사암층에는 화석이 들어 있지 않다. 육상 동물 생명들이 계속 살아 있던 곳은 오직 아프리카의 특정한 지역들뿐이었다.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3,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다양하며, 태평양 연안에서는 18,000피트에 이른다. 나중에 용암이 이 지층의 많은 곳에 투입되었다. 허드슨 강의 팔리세이드 암벽은 이러한 트라이아스기 지층사이에 현무암 용암이 분출되어 생성되었다. 화산 활동이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었다.

유럽 전역, 특히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된 퇴적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적색 사암층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남부 알프스에 석회암이 퇴적되었고 오늘날 백운석 석회암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진 벽들과 봉우리들 그리고 그 지역들에 있는 기둥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카라라 대리석은 그러한 석회암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그 대륙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앞에 있는 신(新)시대와 뒤에 있는 신(新)시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민물 또는 해양 퇴적층만이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다.

150,000,000년 전에, 세계 역사상 초기의 육지-생명 기간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벅차면서도 냉혹했던 해양-생명 기간이 끝나던 때보다는 나았다.

이 시대가 시작될 때,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중부, 남아메리카의 북반부, 유럽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이 물위로 충분히 솟아 올라와 있었다. 처음에는 북아메리카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북아메리카를 아시아와 연결하고 있는 베링해협이 반도가 솟아 올라와서 오랫동안 고립되지는 않았다.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과 평행으로, 북아메리카에서 거대한 해구(海溝)가 형성되었다. 동부 코네티컷에서 거대한 단층 현상이 나타났고 한 쪽이 결국에는 2마일 가량 가라앉았다. 이러한 북아메리카 골짜기들의 대부분은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웅덩이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들어 있는 호수들이 그러하듯이, 나중에 침식 작용에 의한 퇴적물로 채워졌다. 나중에, 함몰되었다가 다시 채워진 이 땅들이 그 땅 밑에서 발생된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높이 솟아올랐다. 여러 곳에 있는 석화(石化)된 삼림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이다.

대륙이 침수되어 있는 동안 대개 물위에 올라와 있었던 태평양 연안은, 지금은 태평양 바다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나의 큰 섬과,

continents was arid. These arid districts were subjected to great erosion from the violent and periodic cloudbursts on the surrounding highlands.

60:1.2 (685.4) Few fossils are to be found in these layers, but numerous sandstone footprints of the land reptiles may be observed. In many regions the one thousand feet of red sandstone deposit of this period contains no fossils. The life of land animals was continuous only in certain parts of Africa.

60:1.3 (685.5) These deposits vary in thickness from 3,000 to 10,000 feet, even being 18,000 on the Pacific coast. Lava was later forced in between many of these layers. The Palisades of the Hudson River were formed by the extrusion of basalt lava between these Triassic strata. Volcanic action was extens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60:1.4 (685.6) Over Europe, especially Germany and Russia, may be found deposits of this period. In England the New Red Sandstone belongs to this epoch. Limestone was laid down in the southern Alps as the result of a sea invasion and may now be seen as the peculiar dolomite limestone walls, peaks, and pillars of those regions. This layer is to be found all over Africa and Australia. The Carrara marble comes from such modified limestone. Nothing of this period will be found in the southern regions of South America as that part of the continent remained down and hence presents only a water or marine deposit continuous with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pochs.

60:1.5 (686.1) 150,000,000 years ago the early land-life periods of the world's history began. Life, in general, did not fare well but did better than at the strenuous and hostile close of the marine-life era.

60:1.6 (686.2) As this era opens, the eastern and central parts of North America, the northern half of South America, most of Europe, and all of Asia are well above water. North America for the first time is geographically isolated, but not for long a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soon again emerges, connecting the continent with Asia.

60:1.7 (686.3) Great troughs developed in North America, paralleling the Atlantic and Pacific coasts. The great eastern-Connecticut fault appeared, one side eventually sinking two miles. Many of these North American troughs were later filled with erosion deposits, as also were many of the basins of the fresh- and salt-water lakes of the mountain regions. Later on, these filled land depressions were greatly elevated by lava flows which occurred underground. The petrified forests of many regions belong to this epoch.

60:1.8 (686.4) The Pacific coast, usually above water during the continental submergences, went down excepting the southern part of California and a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강하였다. 고대의 이 캘리포니아 앞 바다에는 해양 생명이 풍성하게 서식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 확장되어 중서부 지역의 옛 바다 분지와 연결되었다.

140,000,000년 전에, 앞에 있었던 시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발달되었던 파충류 전의 두 가지 선조들이 갑자기 그리고 극소수만이 나타났던 반면, 파충류들이 충만한-성장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그것들은 급속도로 발전되어갔으며, 악어류와 비늘이 있는 파충류들 그리고 결국에는 해룡(海龍)과 날개가 달린 파충류들이 생겨났다. 변환기에 있었던 그것들의 선조들은 신속하게 사라졌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파충류인 공룡들이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것들은 알을 낳았고 뇌가 작은 것이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른 점이었으며, 나중에 40톤에 이르게 된 거대한 몸통을 통제하는 그것들의 뇌가 겨우 1파운드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파충류들은 보다 작았고 육식 동물이었으며 쟁거루처럼 뒷다리로 걸어 다녔다. 그것들의 뼈는 새처럼 속이 비어 있었고 나중에 발달된 뒷다리 발가락은 세 개뿐이었는데, 그것들의 많은 발자국 화석이 거대한 새의 발자국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 후에 초식성의 공룡들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그것들은 네 다리로 걸어 다녔고 이 무리들 중의 한 종류가 방호 갑옷 공룡으로 발전되었다.

수백만 년 후에 최초의 포유동물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태반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실패작으로 즉시 판명되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것은 포유류 동물 유형을 개량하는 하나의 실험적인 노력이었으나, 유란시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의 해양 생명은 빈약하였지만 바닷물이 새로 육지로 범람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로써 바닷물의 침범이 얕은 물로 형성된 해안선을 다시 광대하게 조성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량되었다. 물이 얕은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화석 지대들이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히말라야와 시베리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들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부 태평양 바다 분지를 조사해 보기 바란다. 해양 생명의 현저한 특색은 아름다운 암모나이트 껍데기의 현존이었으며, 그 화석 잔존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130,000,000년 전에, 그 바다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는 베링해협 반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는 풍부하면서도 독특한 해양 생명들이 매우 많이 있었으며, 천여 종 이상의 암모나이트들이 보다 발전된 유형의 두족류 동물로부터 발생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생명 변화들은 그것들이 과도기적이고 점진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 기간은 2천 5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고 트라이아스기라고 알려져 있다.

large island which then existed in what is now the Pacific Ocean. This ancient California sea was rich in marine life and extended eastward to connect with the old sea basin of the midwestern region.

60:1.9 (686.5) 140,000,000 years ago, suddenly and with only the hint of the two prereptilian ancestors that developed in Africa during the preceding epoch, the reptiles appeared in full-fledged form. They developed rapidly, soon yielding crocodiles, scaled reptiles, and eventually both sea serpents and flying reptiles. Their transition ancestors speedily disappeared.

60:1.10 (686.6) These rapidly evolving reptilian dinosaurs soon became the monarchs of this age. They were egg layers and are distinguished from all animals by their small brains, having brains weighing less than one pound to control bodies later weighing as much as forty tons. But earlier reptiles were smaller, carnivorous, and walked kangaroolike on their hind legs. They had hollow avian bones and subsequently developed only three toes on their hind feet, and many of their fossil footprints have been mistaken for those of giant birds. Later on, the herbivorous dinosaurs evolved. They walked on all fours, and one branch of this group developed a protective armor.

60:1.11 (686.7) Several million years later the first mammals appeared. They were nonplacental and proved a speedy failure; none survived. This was an experimental effort to improve mammalian types, but it did not succeed on Urantia.

60:1.12 (686.8) The marine life of this period was meager but improved rapidly with the new invasion of the sea, which again produced extensive coast lines of shallow waters. Since there was more shallow water around Europe and Asia, the richest fossil beds are to be found about these continents. Today, if you would study the life of this age, examine the Himalayan, Siberian, and Mediterranean regions, as well as India and the islands of the southern Pacific basin. A prominent feature of the marine life was the presence of hosts of the beautiful ammonites, whose fossil remains are found all over the world.

60:1.13 (686.9) 130,000,000 years ago the seas had changed very little. Siberia and North America were connected by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A rich and unique marine life appeared on the Californian Pacific coast, where over one thousand species of ammonites developed from the higher types of cephalopods. The life changes of this period were indeed revolutionary notwithstanding that they were transitional and gradual.

60:1.14 (687.1) This period extended over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Triassic*.

제 2 장. 후기 파충류 시대

120,000,000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큰 사건은 공룡류의 진화와 쇠퇴 현상이었다. 육상 동물 생명은 그 크기에 있어서 최고의 발달기를 맞이하였으며,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구의 표면에서 실질적으로 멸종되었다. 하나의 종류로부터 진화된 모든 종류의 공룡류는 길이가 2피트도 안 되는 작은 것으로부터, 그 이후로 살아 있는 어떤 생물도 몸체를 결코 이와 견주지 못했던, 육식을 하지 않는 75피트 길이의 거대한 공룡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공룡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서부의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거대한 이 파충류들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고,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두루 있는 록키산맥 지역 전체와 서부 유럽, 남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등지에 묻혀 있다.

거대한 이 창조체들은 체구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활동력과 힘이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에 그것들은 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온 땅이 그들로 뒤덮이게 되자 문자 그대로 굶어서 죽었고 멸종되었다—그것들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지능이 없었다.

이 무렵에 오랫동안 솟아올라 있었던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은 평평해지고 대서양으로 씻겨 들어가서, 그 해안선은 현재보다 수백 마일 이상 멀리 밖으로 뻗어 있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지역은 여전히 융기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 지역들도 나중에는 북쪽 바다와 태평양에 의해서 침수되었고, 그 바다는 다코다의 블랙 힐스 지역까지 동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콜로라도와 몬태나 그리고 와이오밍에 있는 소위 모리슨 지대의 풍부한 민물 화석에 의해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는 많은 내륙 호수들로 특징을 이루는 민물 시대였다. 민물과 바닷물 두 가지에 의한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2,000에서 5,000피트까지 다양하지만; 이 지층들 속에서는 석회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멀리까지 확장되었던 바로 그 극지방의 바다가 남아메리카 전체도 마찬가지로 뒤덮었으며 다만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안데스 산맥은 예외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부분이 침수되었지만, 유럽 지역에서 가장 심하였다. 아름다운 석판 예술에 사용되는 남부 독일의 암석 층은 이 침수기에 퇴적된 것이었으며, 그 지층들 속에는 고대에 있었던 곤충들의 섬세한 날개들을 보여주는 화석과 같이, 바로 어제의 생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석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 시대의 식물 분포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동일하였다. 양치류는 현상 유지 되는 정도였지만, 반면에 침엽수와 소나무는 점점 더 지금-

2. THE LATER REPTILIAN AGE

60:2.1 (687.2) 120,000,000 years ago a new phase of the reptilian age began. The great event of this period was the evolution and decline of the dinosaurs. Land-animal life reached its greatest development, in point of size, and had virtually per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y the end of this age. The dinosaurs evolved in all sizes from a species less than two feet long up to the huge noncarnivorous dinosaurs, seventy-five feet long, that have never since been equaled in bulk by any living creature.

60:2.2 (687.3) The largest of the dinosaurs originat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se monstrous reptiles are buried throughout the Rocky Mountain regions, along the whole of the Atlantic coast of North America, over western Europe, South Africa, and India, but not in Australia.

60:2.3 (687.4) These massive creatures became less active and strong as they grew larger and larger; but they required such an enormous amount of food and the land was so overrun by them that they literally starved to death and became extinct — they lacked the intelligence to cope with the situation.

60:2.4 (687.5) By this time most of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which had long been elevated, had been leveled down and washed into the Atlantic Ocean so that the coast extended several hundred miles farther out than now. The western part of the continent was still up, but even these regions were later invaded by both the northern sea and the Pacific, which extended eastward to the Dakota Black Hills region.

60:2.5 (687.6) This was a fresh-water age characterized by many inland lakes, as is shown by the abundant fresh-water fossils of the so-called Morrison beds of Colorado, Montana, and Wyoming. The thickness of these combined salt- and fresh-water deposits varies from 2,000 to 5,000 feet; but very little limestone is present in these layers.

60:2.6 (687.7) The same polar sea that extended so far down over North America likewise covered all of South America except the soon appearing Andes Mountains. Most of China and Russia was inundated, but the water invasion was greatest in Europe. It was during this submergence that the beautiful lithographic stone of southern Germany was laid down, those strata in which fossils, such as the most delicate wings of olden insects, are preserved as of but yesterday.

60:2.7 (687.8) The flora of this age was much like that of the preceding. Ferns persisted, while conifers and pines became more and more like the

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발전되었다. 일부의 석탄층이 지중해 북쪽 연안을 따라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었다.

바다가 다시 넓어졌으므로 기후도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 산호가 유럽 지역의 물속에 퍼짐으로써, 기후가 아직 온화하고 일정함을 입증하였지만, 서서히 차가워지는 극지방의 바다들 속에서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해양 생명들은 크게 개량되고 발전되었으며, 특별히 유럽 지역에 있는 물속에서 그러하였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잠시 동안 나타났지만, 암모나이트가 해양의 무척추 생명보다 우위를 차지하였고, 그것들의 평균 크기는 3인치 4인치였으며, 어떤 종은 직경이 8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곳에도지 해면체 동물이 살았고, 오징어와 굴 종류들이 계속 진화되어 나타났다.

110,000,000년 전에, 해양 생물의 잠재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성계는 이 신(新)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돌연변이들 중 하나였다. 계와 가계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유형의 갑각류들이 완성되었다. 물고기 종류들 속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철갑상어종이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사나운 해룡들은 육상 파충류로부터 유래되었고, 계속하여 온 바다에 창궐해 있었으며, 그것들로 인하여 전체 어류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때는 뚜렷한, 그리고 계속되는 공룡의 시대였다. 그들이 육지에 너무나 들끓었기 때문에, 두 종류들이 바다가 침식해 들어오는 시기에 존속을 위하여 물로 뛰어들었다. 이들 해룡들은 진화의 퇴보를 의미하였다. 새로운 종류들이 발전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통들은 고정되어 있었고 또 어떤 종류들은 옛날로 후퇴하여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두 종류의 파충류들이 육지를 저버리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들은 크기가 더욱 커져서 매우 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종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거대한 체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의 뇌가 잘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대한 어룡(魚龍)들이 어떤 경우에는 50피트의 길이까지 자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5피트의 길이에 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뇌의 무게는 2온스 미만에 불과하였다. 악어와 비슷한 해양 동물 역시 육상의 파충류 유형으로부터 퇴보된 것이었지만, 해룡의 경우와는 달리, 알을 낳기 위하여 항상 육지로 되돌아갔다.

두 종류의 공룡들이 자아-보존을 위한 헛된 시도의 일환으로 물속으로 옮겨간 직후에, 육지에 살아남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다른 두 종류의 동물들이 공중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 익룡(翼龍)들은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순수한 조류의 선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고 나는 듯이 달리는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그 날개는 박쥐와 같은 형태로서 20내지 25피트까지 펼 수 있었다. 고대의 이 날개 달린 파충류들은 10피트

present-day varieties. Some coal was still being formed along the northern Mediterranean shores.

60:2.8 (687.9) The return of the seas improved the weather. Corals spread to European waters, testifying that the climate was still mild and even, but they never again appeared in the slowly cooling polar seas. The marine life of these times improved and developed greatly, especially in European waters. Both corals and crinoids temporarily appeared in larger numbers than heretofore, but the ammonites dominated the invertebrate life of the oceans, their average size ranging from three to four inches, though one species attained a diameter of eight feet. Sponges were everywhere, and both cuttlefish and oysters continued to evolve.

60:2.9 (688.1) 110,000,000 years ago the potentials of marine life were continuing to unfold. The sea urchin was one of the outstanding mutations of this epoch. Crabs, lobsters, and the modern types of crustaceans matured. Marked changes occurred in the fish family, a sturgeon type first appearing, but the ferocious sea serpents, descended from the land reptiles, still infested all the seas, and they threatened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fish family.

60:2.10 (688.2) This continued to be, pre-eminently, the age of the dinosaurs. They so overran the land that two species had taken to the water for sustenance during the preceding period of sea encroachment. These sea serpents represent a backward step in evolution. While some new species are progressing, certain strains remain stationary and others gravitate backward, reverting to a former state. And this is what happened when these two types of reptiles forsook the land.

60:2.11 (688.3) As time passed, the sea serpents grew to such size that they became very sluggish and eventually perished because they did not have brains large enough to afford protection for their immense bodies. Their brains weighed less than two ounc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se huge ichthyosaurs sometimes grew to be fifty feet long, the majority being over thirty-five feet in length. The marine crocodilians were also a reversion from the land type of reptile, but unlike the sea serpents, these animals always returned to the land to lay their eggs.

60:2.12 (688.4) Soon after two species of dinosaurs migrated to the water in a futile attempt at self-preservation, two other types were driven to the air by the bitter competition of life on land. But these flying pterosaurs were not the ancestors of the true birds of subsequent ages. They evolved from the hollow-boned leaping dinosaurs, and their wings were of batlike formation with a spread of twenty to twenty-five feet. These ancient flying reptiles grew to be ten feet long, and they had

길이까지 자랐고, 오늘날의 뱀처럼 분리될 수 있는 턱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날개 달린 이 파충류들은 한동안 잘 생존되는 듯 보였지만, 공중을 날아다님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종류로 진화되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새의 조상으로 생존되지 못한 종류들을 대표한다.

이 기간 동안 거북류들이 증가하였고, 최초의 형태는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그것들의 조상은 북쪽에 있는 반도의 길을 통하여 아시아로부터 왔다.

1억 년 전에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공룡들은 그것들의 거대한 몸집에 비교할 때 뇌가 거의 없는 동물과 마찬가지로였으며, 그러한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기에는 지능이 너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기능이 둔해진 이 육상 파충류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진화 과정이 육체적인 크기가 아니라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일어났으며, 그러한 뇌의 발달은 이어지는 동물 진화와 행성 진보에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에 대한 특징이 되었다.

파충류의 최고 발달기와 쇠퇴기가 포함된 이 기간은 거의 2천 5백만 년의 기간에 이르며, 이 시기는 쥐라기로 알려져 있다.

제 3 장. 백악기(白堊紀)—꽃-식물 시기—조류 시대

거대한 백악기의 이름은 바다에서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백악(白堊)을 만드는 풍성한 유공충(有孔蟲)이 현저하게 많이 존재한데서 연유되었다. 파충류가 유란시아를 통치하던 긴 기간이 이 시대 이후에 끝나게 되었고, 꽃을 맺는 식물들과 조류 생명이 이 때 땅 위에 출현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또한 서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대륙들이 유동하던 것도 멈추게 되었고, 거대한 지구의 지각 변형이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용암이 넓게 흘러 퍼지는 큰 화산 활동이 뒤따랐다.

앞에 있었던 지질학적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되었을 때, 산봉우리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륙의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다. 그러나 대륙 땅덩어리들이 계속 유동할 때, 태평양 바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장애물과 부딪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질학적 기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알래스카부터 시작하여 밑으로 멕시코를 거쳐 케이프 혼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거대한 산맥 전체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여 이 기간은 지질 역사상 현대 조산기(造山期)가 되었다. 이 시기 전에는 산봉우리들이 거의 없었으며, 다만 매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 때 태평양 연안 지역이 융기되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현재의

separable jaws much like those of modern snakes. For a time these flying reptiles appeared to be a success, but they failed to evolve along lines which would enable them to survive as air navigators. They represent the nonsurviving strains of bird ancestry.

60:2.13 (688.5) Turtles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first appearing in North America. Their ancestors came over from Asia by way of the northern land bridge.

60:2.14 (688.6) One hundred million years ago the reptilian age was drawing to a close. The dinosaurs, for all their enormous mass, were all but brainless animals, lacking the intelligence to provide sufficient food to nourish such enormous bodies. And so did these sluggish land reptiles perish in ever-increasing numbers. Henceforth, evolution will follow the growth of brains, not physical bulk, and the development of brains will characterize each succeeding epoch of animal evolution and planetary progress.

60:2.15 (688.7) This period, embracing the height and the beginning decline of the reptiles, extended nearly twenty-five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Jurassic*.

3. THE CRETACEOUS STAGE THE FLOWERING-PLANT PERIOD THE AGE OF BIRDS

60:3.1 (688.8) The great Cretaceous period derives its name from the predominance of the prolific chalk-making foraminifers in the seas. This period brings Urantia to near the end of the long reptilian dominance and witnesses the appearance of flowering plants and bird life on land. These are also the times of the termination of the westward and southward drift of the continents, accompanied by tremendous crustal deformations and concomitant widespread lava flows and great volcanic activities.

60:3.2 (689.1) Near the close of the preceding geologic period much of the continental land was up above water, although as yet there were no mountain peaks. But as the continental land drift continued, it met with the first great obstruction on the deep floor of the Pacific. This contention of geologic forces gave impetus to the formation of the whole vast north and south mountain range extending from Alaska down through Mexico to Cape Horn.

60:3.3 (689.2) This period thus becomes the *modern mountain-building stage* of geologic history. Prior to this time there were few mountain peaks, merely elevated land ridges of great width. Now the Pacific coast range was beginning to elevate,

해변이 있는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700마일 지점에 있었다. 시에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금이 들어 있는 석영 층이 이 신(新)시대에 용암 분출의 산물로 형성되었다. 북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압력이 작용하여 땅이 올라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00,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일부분이 물위로 충분히 올라와 있었다. 아메리카의 두 대륙들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변형되었으며 북아메리카의 서부 평원들이 서서히 융기되었다. 멕시코 지역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남부의 대서양 물이 남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침범하였으며, 결국에는 현재의 해안선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 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현재와 비슷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95,000,000년 전에, 아메리카와 유럽 땅 덩어리들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남부의 바다들이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흘러들기 시작하였고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어 북극해와 합류하게 되었으며, 그 대륙이 두 번째로 크게 침수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 바다가 최종적으로 물러갔을 때, 현재와 비슷한 모양의 대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침수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아팔라치아 고지대들이 거의 모두 수면 밑으로 침강되었다. 순수한 점토질인 여러 색의 지층들이 오늘날 질그릇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지층들은 이 시기 동안에 대서양 연안에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었고, 평균 두께는 약 2,000피트에 이른다.

거대한 화산 활동이 알프스 남부 지역과 현재의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있는 산들에서 발생되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중에서 가장 큰 지구의 지각 변동들이 멕시코에서 발생되었다. 유럽,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는 점점 더 다양화 되어갔다.

90,000,000년 전에, 초기 백악기의 바다로부터 속씨식물이 발생되었고 곧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이 육상 식물들은 무화과류 나무들, 목련나무, 그리고 툼버나무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그 직후에, 무화과류 나무들, 빵 열매 나무들, 그리고 종려나무 류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평원 서부 지역에 퍼졌다. 새로운 육상동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85,000,000년 전에, 베링 해협이 닫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들이 차단되었다. 그리하여 대서양-만의 물속에 있는 해양 생명과 태평양에 있는 해양 생명이 크게 틀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동일해진 이 두 바닷물의 온도가 차이 났기 때문이었다.

백악과 녹색 모래흙인 이회토의 침전물로 인하여 이 기간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매우 다양하여, 백악, 이판암, 사암, 그리고

but it was located seven hundred miles west of the present shore line. The Sierras were beginning to form, their gold-bearing quartz strata being the product of lava flows of this epoch. In the 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tlantic sea pressure was also working to cause land elevation.

60:3.4 (689.3) 100,000,000 years ago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nd a part of Europe were well above water. The warping of the American continents continued, resulting in the metamorphosing of the South American Andes and in the gradual elevation of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Most of Mexico sank beneath the sea, and the southern Atlantic encroached on the eastern coast of South America, eventually reaching the present shore line. The Atlantic and Indian Oceans were then about as they are today.

60:3.5 (689.4) 95,000,000 years ago the American and European land masses again began to sink. The southern seas commenced the invasion of North America and gradually extended northward to connect with the Arctic Ocean, constituting the second greatest submergence of the continent. When this sea finally withdrew, it left the continent about as it now is. Before this great submergence began, the eastern Appalachian highlands had been almost completely worn down to the water's level. The many colored layers of pure clay now used for the manufacture of earthenware were laid down over the Atlantic coast regions during this age, their average thickness being about 2,000 feet.

60:3.6 (689.5) Great volcanic actions occurred south of the Alps and along the line of the present California coast-range mountains. The greatest crustal deformations in millions upon millions of years took place in Mexico. Great changes also occurred in Europe, Russia, Japan, and southern South America. The climate became increasingly diversified.

60:3.7 (689.6) 90,000,000 years ago the angiosperms emerged from these early Cretaceous seas and soon overran the continents. These land plants suddenly appeared along with fig trees, magnolias, and tulip trees. Soon after this time fig trees, breadfruit trees, and palms overspread Europe and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No new land animals appeared.

60:3.8 (689.7) 85,000,000 years ago the Bering Strait closed, shutting off the cooling waters of the northern seas. Theretofore the marine life of the Atlantic-Gulf waters and that of the Pacific Ocean had differed greatly, owing to the temperature variations of these two bodies of water, which now became uniform.

60:3.9 (689.8) The deposits of chalk and greensand marl give name to this period. The sedimentations of these times are variegated, consisting of chalk,

적은 양의 석회암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낮은 석탄 또는 갈탄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지역에서 침전물들이 석유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지층들의 두께는 어떤 지역에서는 200피트에서부터 북아메리카의 서부지역과 유럽의 많은 지방들에서는 10,00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퇴적층들은 록키산맥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기울어진 구릉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침전물 지층들은 백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구멍이 많이 있는 반(半)암석으로 구성된 이 지층들은 위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물을 받아들여서 아래쪽으로 옮겨감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조 지역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80,000,000년 전에, 지구의 지각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 유동되던 대륙의 서쪽 방향 진행은 정지된 상태가 되었고, 뒤에서 밀려오는 대륙 덩어리의 완만한 운동에 의한 거대한 에너지로 인하여 남-북 아메리카 모두의 태평양 해안선이 위로 구겨졌고, 아시아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심한 반향적인 변화가 일으켰다. 지금-현재의 산맥들에서 절정에 도달한 태평양 주변의 육지 용기는 25,000마일 이상의 길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용기된 이것들은 유란시아에 생명이 출현한 이후로 가장 크게 표면이 일그러진 경우에 해당되었다. 지표면 위와 아래의 융암 흐름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넓게 퍼져나갔다.

75,000,000년 전에, 대륙 유동이 멈추었다. 알래스카로부터 케이프 혼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산맥들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산봉우리들이 겨우 있었다.

유동이 정지된 대륙의 역단층(逆斷層)이 북아메리카의 서부 평원의 고도를 계속 높였으며, 반면에 동부에서는 대서양 해안 지역의 마멸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위로 투사되어 나왔다.

70,000,000년 전에, 록키산맥 지역이 최고점으로 용기되면서 지표면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큰 바위 조각이 영국에 있는 콜롬비아의 지표면에 15마일에 걸쳐서 단층을 형성하였다; 이곳에서 캄브리아기 암석이 백악기 지층들 위로 비스듬하게 솟아 나왔다. 캐나다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록키산맥의 동쪽 기슭에서는 다른 단층 현상이 장관의 모습을 이루었다; 이곳에서 그 후에 조성된 백악기 퇴적층들 위로 밀려나온, 생명-이전(以前)의 암석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작은 화산 분화구들이 독립적으로 솟아올랐다. 가라앉아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하였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물 밑에 있었다.

shale, sandstone, and small amounts of limestone, together with inferior coal or lignite, and in many regions they contain oil. These layers vary in thickness from 200 feet in some places to 10,000 feet in western North America and numerous European localities. Along the eastern borders of the Rocky Mountains these deposits may be observed in the uptilted foothills.

60:3.10 (690.1) All over the world these strata are permeated with chalk, and these layers of porous semirock pick up water at upturned outcrops and convey it downward to furnish the water supply of much of the earth's present arid regions.

60:3.11 (690.2) 80,000,000 years ago great disturbances occurred in the earth's crust. The western advance of the continental drift was coming to a standstill, and the enormous energy of the sluggish momentum of the hinter continental mass upcrumpled the Pacific shore line of both North and South America and initiated profound repercussional changes along the Pacific shores of Asia. This circumpacific land elevation, which culminated in present-day mountain ranges, is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miles long. And the upheavals attendant upon its birth were the greatest surface distortions to take place since life appeared on Urantia. The lava flows, both above and below ground, were extensive and widespread.

60:3.12 (690.3) 75,000,000 years ago marks the end of the continental drift. From Alaska to Cape Horn the long Pacific coast mountain ranges were completed, but there were as yet few peaks.

60:3.13 (690.4) The backthrust of the halted continental drift continued the elevation of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while in the east the worn-down Appalachian Mountains of the Atlantic coast region were projected straight up, with little or no tilting.

60:3.14 (690.5) 70,000,000 years ago the crustal distortions connected with the maximum elevation of the Rocky Mountain region took place. A large segment of rock was overthrust fifteen miles at the surface in British Columbia; here the Cambrian rocks are obliquely thrust out over the Cretaceous layers. On the eastern slope of the Rocky Mountains, near the Canadian border, there was another spectacular overthrust; here may be found the prelife stone layers shoved out over the then recent Cretaceous deposits.

60:3.15 (690.6) This was an age of volcanic activity all over the world, giving rise to numerous small isolated volcanic cones. Submarine volcanoes broke out in the submerged Himalayan region. Much of the rest of Asia, including Siberia, was also still under water.

65,000,0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암 분출들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이 때 퇴적된 지층들과 그 전에 흘러 나왔던 용암층들이 아메리카 대륙들 전역과 남-북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육상동물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거대한 대륙의 창발로 인하여, 특별히 북아메리카에서 빠르게 번식되었다. 북아메리카는 이 시기의 육상 동물 진화가 많이 일어난 곳이었으며, 유럽의 대부분은 물속에 있었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하였다. 극지방들의 날씨는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중부와 남부 지역의 기후와 거의 흡사한 좋은 상태였다.

식물 생명에서 거대한 진화 현상이 일어났다. 육상식물들 중에서 속씨식물 류가 강세를 나타냈고, 지금-현재 볼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이 처음으로 출현하였으며, 그 중에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오크나무,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그리고 현대의 종려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일 나무들과 풀밭 그리고 곡식류가 풍성하게 자랐으며, 사람의 조상들이 동물 세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씨를 맺는 이 풀들과 나무들이 식물 세계를 이루었다—그것들은 사람 자신의 출현 다음으로 중요한 진화였다. 꽃을 맺는 식물들의 큰 무리가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변화 없이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식물들은 곧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60,000,000년 전에, 육상 파충류들이 감소하였지만, 공룡들은 여전히 육지의 지배자로 남아있었고, 이제 그 주도권은 육식을 하는 공룡들 중에서 보다 작고 경충경충 뛰는 캥거루 종류의 보다 기민하고 활동적인 유형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앞선 시대 언젠가에 새로운 유형의 초식 공룡들이 출현하였으며, 육상 식물에 속하는 풀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되었다. 풀을 먹는 이 새로운 공룡들 중 하나는, 어깨 둘레에 갑옷 같은 것이 있고 두 뺨을 가진 순수한 네 발 짐승이었다. 직경이 20피트에 이르는 육지에서 사는 거북이가 출현하였고 현재와 같은 유형의 악어와 뱀들도 나타났다. 어류를 비롯하여 다른 해양 생명의 유형에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앞선 시대들에서,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던, 조류 이전의 동물들은 공중에서 머무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익룡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종족들은 오래 살지 못하였고, 곧 사라졌다. 그것들 역시 몸통의 크기에 비하여 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룡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소멸되었다. 이 시대와 바로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 포유동물을 조성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동물을 조성하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하였다.

55,000,000년 전에, 최초의 순수한 조류, 모든 조류 생명의 선조가 되었던 작은 비둘기 형태의

60:3.16 (690.7) 65,000,000 years ago there occurred one of the greatest lava flows of all time. The deposition layers of these and preceding lava flows are to be found all over the Americas, North and South Africa, Australia, and parts of Europe.

60:3.17 (690.8) The land animals were little changed, but because of greater continental emergence, especially in North America, they rapidly multiplied. North America was the great field of the land-animal evolution of these times, most of Europe being under water.

60:3.18 (690.9) The climate was still warm and uniform. The arctic regions were enjoying weather much like that of the present climate in central and southern North America.

60:3.19 (690.10) Great plant-life evolution was taking place. Among the land plants the angiosperms predominated, and many present-day trees first appeared, including beech, birch, oak, walnut, sycamore, maple, and modern palms. Fruits, grasses, and cereals were abundant, and these seed-bearing grasses and trees were to the plant world what the ancestors of man were to the animal world — they were second in evolutionary importance only to the appearance of man himself. Suddenly and without previous gradation, the great family of flowering plants mutated. And this new flora soon overspread the entire world.

60:3.20 (691.1) 60,000,000 years ago, though the land reptiles were on the decline, the dinosaurs continued as monarchs of the land, the lead now being taken by the more agile and active types of the smaller leaping kangaroo varieties of the carnivorous dinosaurs. But sometime previously there had appeared new types of the herbivorous dinosaurs, whose rapid increase was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grass family of land plants. One of these new grass-eating dinosaurs was a true quadruped having two horns and a capelike shoulder flange. The land type of turtle, twenty feet across, appeared as did also the modern crocodile and true snakes of the modern type. Great changes were also occurring among the fishes and other forms of marine life.

60:3.21 (691.2) The wading and swimming prebirds of earlier ages had not been a success in the air, nor had the flying dinosaurs. They were a short-lived species, soon becoming extinct. They, too, were subject to the dinosaur doom, destruction, because of having too little brain substance in comparison with body size. This second attempt to produce animals that could navigate the atmosphere failed, as did the abortive attempt to produce mammals during this and a preceding age.

60:3.22 (691.3) 55,000,000 years ago the evolutionary march was marked by the sudden appearance of

창조체가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에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세 번째로 나타났던 날라 다니는 창조체였으며, 당대에 있었던 익룡으로부터 혹은 보다 초기 유형의 이를 가진 육상 조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 집단으로부터 직접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제 4 장. 백악기가 끝남

거대한 백악기가 끝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와 함께 대륙들이 바다에 의해 크게 침수되었던 기간도 끝나게 되었다. 특별히 이것은 북아메리카에서 진실인데, 그곳에는 정확히 24번의 거대한 바닷물 침범 현상이 있었다. 그 뒤에도 사소한 침범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의 어떤 것도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들 중에 일어났던 광대하고 긴 기간의 해양 침범 과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육지와 바다가 번갈아 가며 우세했던 이 기간들은 백만 년 주기로 발생하였다. 해양 바닥과 대륙의 고도가 오르내리는 것과 연관된 긴 기간의 규칙적인 리듬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기적인 직각 운동이 이때부터 전체 지구 역사 동안 계속되었지만 빈도와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에 또한 대륙의 유동이 멈추었고 유란시아의 현대적 산악시대들이 조성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대륙 땅 덩어리들에 의한 압력과 오랫동안 유동하던 추진력에 의해 형성된 그 꺾여버린 힘만이 산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산맥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주요 요소는, 앞에 있었던 시대들의 육지 침식과 해양 유동에 의하여 비교적 가벼운 퇴적물로 채워지게 되었던 선재하던 저지대 또는 해구(海溝)였다. 이러한 비교적 가벼운 육지 지역들의 두께는 종종 15,000내지 20,000피트에 이르렀다; 그렇게 때문에, 지구의 지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지구의 지각 속에서 또는 그 지각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충돌력과 압력에 대하여 보상하는 조절 역할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가벼운 이 지역들이 먼저 구김살이 잡히고 접혀지면서 위로 올라갔다. 때로는 접혀지는 현상 없이 땅이 융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록기산맥이 융기된 경우는, 거대한 접혀짐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와 함께 지표면과 땅 속에서 다양한 지층들이 거대한 단층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들은, 아시아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서 방향으로 조직된 오래된 지역들 속에 있다. 중간 정도로 오래된 산들은 태평양을 둘러싸는 주위의 산맥들과, 거의 같은 무렵에 형성된 동-서 방향으로 조성된 유럽의 두 번째 산맥 체계 속에 있다. 거대한 이 상승 현상은 거의 10,000마일의 길이에 이르며, 유럽에서부터 서인도 제도의 융기된 땅까지 뻗어 있다.

the first of the *true birds*, a small pigeonlike creature which was the ancestor of all bird life. This was the third type of flying creature to appear on earth, and it sprang directly from the reptilian group, not from the contemporary flying dinosaurs nor from the earlier types of toothed land birds. And so this becomes known as the *age of birds* as well as the declining age of reptiles.

4. THE END OF THE CHALK PERIOD

60:4.1 (691.4) The great Cretaceous period was drawing to a close, and its termination marks the end of the great sea invasions of the continents. Particularly is this true of North America, where there had been just twenty-four great inundations. And though there were subsequent minor submergences, none of these can be compared with the extensive and lengthy marine invasions of this and previous ages. These alternate periods of land and sea dominance have occurred in million-year cycles. There has been an agelong rhythm associated with this rise and fall of ocean floor and continental land levels. And these same rhythmical crustal movements will continue from this time on throughout the earth's history but with diminishing frequency and extent.

60:4.2 (691.5) This period also witnesses the end of the continental drift and the building of the modern mountains of Urantia. But the pressure of the continental masses and the thwarted momentum of their agelong drift are not the exclusive influences in mountain building. The chief and underlying factor in determining the location of a mountain range is the pre-existent lowland, or trough, which has become filled up with the comparatively lighter deposits of the land erosion and marine drifts of the preceding ages. These lighter areas of land are sometimes 15,000 to 20,000 feet thick; therefore, when the crust is subjected to pressure from any cause, these lighter areas are the first to crumple up, fold, and rise upward to afford compensatory adjustment for the contending and conflicting forces and pressures at work in the earth's crust or underneath the crust. Sometimes these upthrusts of land occur without folding. But in connection with the rise of the Rocky Mountains, great folding and tilting occurred, coupled with enormous overthrusts of the various layers, both underground and at the surface.

60:4.3 (692.1) The oldest mountains of the world are located in Asia, Greenland, and northern Europe among those of the older east-west systems. The mid-age mountains are in the circumpacific group and in the second European east-west system, which was born at about the same time. This gigantic uprising is almost ten thousand miles long, extending from Europe over into the West

가장 젊은 산들은 록키산맥 체계 속에 있으며, 그곳은, 더욱 높은 지대들이 가운데에는 더러는 섬으로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나중에 바다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덮이게 되는 땅의 융기 사건들만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중간 정도로 오래된 산들이 형성된 이후에, 실제 산악 고지대가 융기되었고, 결국에는 자연 요소들의 복합적인 기교에 의해 예술적으로 깎여짐으로써 현재의 록키산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현재의 록키산맥 지역은 융기되었던 땅 그대로가 아니며; 오랫동안의 침식되어 평평해진 후에 다시 융기되었다. 현재의 산맥 앞면은 다시 융기되었던 기원적 산맥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다. 뾰족한 봉우리와 긴 봉우리는 두 세대 이상 산이 있음으로써 이러한 조산(造山)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두 봉우리들은 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침수 동안에도 물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육지 위와 물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활동적인 기간이었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줄어든 반면 성게는 증가 하였다. 앞에 있었던 기간 동안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던 암모나이트가 또한 급속도로 쇠퇴되었다. 땅 위에서는 양치류 숲 대부분은, 거대한 아메리카 삼나무를 포함하여 소나무와 기타 현대적 나무들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태반을 갖는 포유류가 아직 진화되지 못한 반면, 생물학적 단계는 미래의 포유류 형태가 되기 위한 초기 선조가 그 다음 시대에 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육지 생명의 초기 출현으로부터, 인간 종족들의 직계 조상과 그와 평행으로 나타난 여러 지류들로 구성된 보다 후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긴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백악기인 이 시대는 5천만 년의 기간이었으며, 중생대라고 알려진 1억 년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포유류 이전의 육지생명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사타니아에 배정되었고 현재 유란시아에서 기능하고 있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Indies land elevations. The youngest mountains are in the Rocky Mountain system, where, for ages, land elevations had occurred only to be successively covered by the sea, though some of the higher lands remained as islands. Subsequent to the formation of the mid-age mountains, a real mountain highland was elevated which was destined, subsequently, to be carved into the present Rocky Mountains by the combined artistry of nature's elements.

60:4.4 (692.2) The present North American Rocky Mountain region is not the original elevation of land; that elevation had been long since leveled by erosion and then re-elevated. The present front range of mountains is what is left of the remains of the original range which was re-elevated. Pikes Peak and Longs Peak are outstanding examples of this mountain activity, extending over two or more generations of mountain lives. These two peaks held their heads above water during several of the preceding inundations.

60:4.5 (692.3) Biologically as well as geologically this was an eventful and active age on land and under water. Sea urchins increased while corals and crinoids decreased. The ammonites, of preponderant influence during a previous age, also rapidly declined. On land the fern forests were largely replaced by pine and other modern trees, including the gigantic redwoods. By the end of this period, while the placental mammal has not yet evolved, the biologic stage is fully set for the appearance, in a subsequent age, of the early ancestors of the future mammalian types.

60:4.6 (692.4) And thus ends a long era of world evolution, extending from the early appearance of land life down to the more recent times of the immediate ancestors of the human species and its collateral branches. This, the *Cretaceous age*, covers fifty million years and brings to a close the premammalian era of land life, which extends over a period of one hundred million years and is known as the *Mesozoic*.

60:4.7 (692.5) [Present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assigned to Satania and now functioning on Urantia.]

제 61 편 유란시아의 포유류 동물기

⇨ 060

유란시아 책

062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61 편 유란시아의 포유류 동물기

색션

소개

제 1 장. 새로운 대륙 형성기—초기 포유류 시대

제 2 장. 최근의 홍수기—고등(高等) 포유류기

제 3 장. 현대의 조산기(造山期)—코끼리와 말의 시대

제 4 장. 최근의 대륙—육기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제 5 장. 초기 빙하시대

제 6 장. 빙하시대의 원시인

제 7 장. 계속되는 빙하기

소개

포유동물 시대는 포유동물이 처음 기원되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신생대 기간 동안, 지구의 경치는 매우 매우 혹적인 모습—완만한 높낮이의 언덕들, 넓은 계곡들, 넓은 강들, 그리고 울창한 삼림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파나마 지협(地峽)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 베링 해협의 반도는 똑같이 세 번 그랬다. 동물 유형은 그 숫자도 많았고 다양하였다. 진화동물 종류들의 최극위를 위한 끊임없는 고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새들이 우글거렸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파라다이스이었다.

다섯 개의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천만 년 동안 누적된 퇴적층들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를 기록해 놓은 화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이

PAPER 61

THE MAMMALIAN ERA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w Continental Land Stage

The Age of Early Mammals

2. The Recent Flood Stage

The Age of Advanced Mammals

3. The Modern Mountain Stage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4. The Recent Continental-Elevation Stage

The Last Great Mammalian Migration

5. The Early Ice Age

6. Primitive Man in the Ice Age

7. The Continuing Ice Age

INTRODUCTION

61:0.1 (693.1) THE era of mammals extends from the times of the origin of placental mammals to the end of the ice age, covering a little less than fifty million years.

61:0.2 (693.2) During this Cenozoic age the world's landscape presented an attractive appearance — rolling hills, broad valleys, wide rivers, and great forests. Twice during this sector of time the Panama Isthmus went up and down; three time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did the same. The animal types were both many and varied. The trees swarmed with birds, and the whole world was an animal paradise, notwithstanding the incessant struggle of the evolving animal species for supremacy.

61:0.3 (693.3) The accumulated deposits of the five periods of this fifty-million-year era contain the fossil records of the successive mammalian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dynasties and lead right up through the times of the actual appearance of man himself.

제 1 장. 새로운 대륙 형성기—초기 포유류 시대

1. THE NEW CONTINENTAL LAND STAGE THE AGE OF EARLY MAMMALS

50,000,000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매우 적었다. 이 기간에 형성된 지층들과 퇴적층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되었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이 시대 초기에 북아메리카에서 태반을 가진 포유류 유형이 갑자기 출현하였고, 이때까지 이루어진 진화적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태반(胎盤)이 없는 미숙한 종류들이 선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이 동물은 선재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 파충류의 후손들은 공룡의 쇠퇴기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태반을 가진 포유류의 조상은, 크기가 작고 매우 활동적이며 육식 동물이었으며 펠쩍펠쩍 뛰는 유형을 가진 일종의 공룡이었다.

이들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포유류의 기본적인 자연본능이 현시되기 시작하였다. 포유동물들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동물들보다 엄청난 생존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

1. 비교적 성숙되고 잘 발육된 새끼를 출산.

2.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써 자기 새끼를 먹이고 양육하며 보호함.

3. 자아-영속에서 자신들의 우월한 두뇌 힘을 발휘.

4. 증가된 민첩성을 적으로부터 도망에 활용.

5. 환경적 조절과 적응에 우월한 지능을 적용.

45,000,000년 전에, 해안선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가라앉으면서, 대륙의 중심 지대들이 융기되었다. 포유류 생명이 급속도로 진화되었다. 작은 크기의 파충류 모양,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류가 탄생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 말이 빠른 코뿔소, 주둥이가 긴 맥, 원시 돼지, 다람쥐, 여우 원숭이, 주머니 쥐, 그리고 원숭이 유형의 여러 종의 동물들이 생겨났다. 그것들은 모두 작고 원시적인 형태였으며 산악 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큰 육지 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나중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새가 되었는데, 그 새는 매우 지능이 높았고 한 때 공중을 날면서 사람들을 운반해 주기

61:1.1 (693.4) 50,000,000 years ago the land areas of the world were very generally above water or only slightly submerged. The formations and deposits of this period are both land and marine, but chiefly land. For a considerable time the land gradually rose but was simultaneously washed down to the lower levels and toward the seas.

61:1.2 (693.5) Early in this period and in North America the placental type of mammals *suddenly* appeared, and they constituted the most important evolutionary development up to this time. Previous orders of nonplacental mammals had existed, but this new type sprang directly and *suddenly* from the pre-existent reptilian ancestor whose descendants had persisted on down through the times of dinosaur decline. The father of the placental mammals was a small, highly active, carnivorous, springing type of dinosaur.

61:1.3 (693.6) Basic mammalian instincts began to be manifested in these primitive mammalian types. Mammals possess an immense survival advantage over all other forms of animal life in that they can:

61:1.4 (693.7) 1. Bring forth relatively mature and well-developed offspring.

61:1.5 (693.8) 2. Nourish, nurture, and protect their offspring with affectionate regard.

61:1.6 (693.9) 3. Employ their superior brain power in self-perpetuation.

61:1.7 (693.10) 4. Utilize increased agility in escaping from enemies.

61:1.8 (693.11) 5. Apply superior intelligence to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adaptation.

61:1.9 (694.1) 45,000,000 years ago the continental backbones were elevated in association with a very general sinking of the coast lines. Mammalian life was evolving rapidly. A small reptilian, egg-laying type of mammal flourished, and the ancestors of the later kangaroos roamed Australia. Soon there were small horses, fleet-footed rhinoceroses, tapirs with proboscises, primitive pigs, squirrels, lemurs, opossums, and several tribes of monkeylike animals. They were all small, primitive, and best suited to living among the forests of the mountain regions. A large ostrichlike land bird developed to a height of ten feet and laid an egg nine by thirteen inches. These were the ancestors of the later gigantic passenger birds that were so highly intelligent, and that onetime

도 하였다.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들은 땅 위와 물속과 공중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그것들은 한 쌍에서부터 11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 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되었고, 몸통에 비하여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형태는 하나도 없었다.

40,000,000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루었으며, 용암 분출과 뒤틀림 현상 그리고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가지의 육지 운동들이 발생하였다.

이 신(新)시대의 후반기 동안에는 유럽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있었다. 육지가 약간 융기된 후 그 대륙에 많은 호수들과 만들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 그 당시에 북쪽으로 확대되어 있던 지중해, 알프스, 카르파티아, 아페네 산맥들이 바다의 섬처럼 물위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되었다. 파나마 지협이 융기되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의 반도에 의해서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의해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북쪽 위도(緯度) 지역에 있는 땅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 해협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그 해협은 커지게 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많은 유공충(有孔蟲) 류가 들어 있는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되었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 10,000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 16,000피트 높이로, 티베트 지역에서 20,000피트 높이로 솟아올라 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白堊)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선을 따라서,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다.

소위 시신세(始新世)라고 불리는 이 기간 전체 동안, 포유동물 기타 그와 비슷한 다른 생명의 진화는 거의 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되어졌다. 그 때 북아메리카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들과 육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포유 동물 군(群)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 2 장. 최근의 홍수기—고등(高等) 포유류기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된 것, 이 기간 동안 포유동물의 보다 진보된 형태가 개발된 것이었다.

transported human beings through the air.

61:1.10 (694.2) The mammals of the early Cenozoic lived on land, under the water, in the air, and among the treetops. They had from one to eleven pairs of mammary glands, and all were covered with considerable hair. In common with the later appearing orders, they developed two successive sets of teeth and possessed large brains in comparison to body size. But among them all no modern forms existed.

61:1.11 (694.3) 40,000,000 years ago the land areas of the Northern Hemisphere began to elevate, and this was followed by new extensive land deposits and other terrestrial activities, including lava flows, warping, lake formation, and erosion.

61:1.12 (694.4) During the latter part of this epoch most of Europe was submerged. Following a slight land rise the continent was covered by lakes and bays. The Arctic Ocean, through the Ural depression, ran south to connect with the Mediterranean Sea as it was then expanded northward, the highlands of the Alps, Carpathians, Apennines, and Pyrenees being up above the water as islands of the sea. The Isthmus of Panama was up;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were separated. North America was connected with Asia by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and with Europe by way of Greenland and Iceland. The earth circuit of land in northern latitudes was broken only by the Ural Straits, which connected the arctic seas with the enlarged Mediterranean.

61:1.13 (694.5) Considerable foraminiferal limestone was deposited in European waters. Today this same stone is elevated to a height of 10,000 feet in the Alps, 16,000 feet in the Himalayas, and 20,000 feet in Tibet. The chalk deposits of this period are found along the coasts of Africa and Australia, on the west coast of South America, and about the West Indies.

61:1.14 (694.6) Throughout this so-called *Eocene* period the evolution of mammalian and other related forms of life continued with little or no interruption. North America was then connected by land with every continent except Australia, and the world was gradually overrun by primitive mammalian fauna of various types.

2. THE RECENT FLOOD STAGE THE AGE OF ADVANCED MAMMALS

61:2.1 (694.7)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further and rapid evolution of placental mammals, the more progressive forms of mammalian life developing during these times.

초기의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조상들로부터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초식성의 종류들이 곧 이어서 개발되었고, 오래지 않아서 잡식성의 종류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속씨식물들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었고, 지금-현재 볼 수 있는 식물과 나무들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적 육상 식물군이 초기 동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35,000,000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 동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쪽에 있는 반도가 확장되어, 그 당시에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성의 바다들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하였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 발생되었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광목할만한 변화들이 지구에 있는 동물군 속에서 발생되었다. 해양 생명은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현재와 같은 계층의 해양 생명이 실존하였으며, 유공충 종류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곤충 생명은 앞에 있었던 시대의 그것들과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에 있는 플로리산트 화석 시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된 것이다. 살아있는 곤충 종류들의 원조는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 실존하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멸종되었고 화석들만 남아 있다.

이 시기에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하게 개량되고 넓게 퍼져 나갔다. 그 전에 있었던 보다 원시 형태들 중에서 백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들도 곧 사라지게 되었다. 외피의 유무와 몸체의 크기 대신에,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공룡 종류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점차 포유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남아있던 파충류 조상들을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멸종시켰다.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도마뱀 종류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에게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초기의 파충류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하여 거북이 종류와 뱀 종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 동물들은 지금은 멸종된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되었다. 육식 동물이었던 이 창조체는 고양이와 바다표범의 중간에 있는 형태였으며; 땅과 물속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발달된 지능과 활동력을 갖고 있었다. 개(犬) 과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되어 나타났고, 수많은 종류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 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하여, 이로 갹아먹는 설치(楔齒) 동물들이 발생한 이래 주목

61:2.2 (694.8) Although the early placental mammals sprang from carnivorous ancestors, very soon herbivorous branches developed, and, ere long, omnivorous mammalian families also sprang up. The angiosperms were the principal food of the rapidly increasing mammals, the modern land flora, including the majority of present-day plants and trees, having appeared during earlier periods.

61:2.3 (695.1) 35,000,000 years ago marks the beginning of the age of placental-mammalian world domination. The southern land bridge was extensive, reconnecting the then enormous Antarctic continent with South America, South Africa, and Australia. In spite of the massing of land in high latitudes, the world climate remained relatively mild because of the enormous increase in the size of the tropic seas, nor was the land elevated sufficiently to produce glaciers. Extensive lava flows occurred in Greenland and Iceland, some coal being deposited between these layers.

61:2.4 (695.2) Marked changes were taking place in the fauna of the planet. The sea life was undergoing great modification; most of the present-day orders of marine life were in existence, and foraminifers continu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he insect life was much like that of the previous era. The Florissant fossil beds of Colorado belong to the later years of these far-distant times. Most of the living insect families go back to this period, but many then in existence are now extinct, though their fossils remain.

61:2.5 (695.3) On land this was pre-eminently the age of mammalian renovation and expansion. Of the earlier and more primitive mammals, over one hundred species were extinct before this period ended. Even the mammals of large size and small brain soon perished. Brains and agility had replaced armor and size in the progress of animal survival. And with the dinosaur family on the decline, the mammals slowly assumed domination of the earth, speedily and completely destroying the remainder of their reptilian ancestors.

61:2.6 (695.4) Along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dinosaurs, other and great changes occurred in the various branches of the saurian family. The surviving members of the early reptilian families are turtles, snakes, and crocodiles, together with the venerable frog, the only remaining group representative of man's earlier ancestors.

61:2.7 (695.5) Various groups of mammals had their origin in a unique animal now extinct. This carnivorous creature was something of a cross between a cat and a seal; it could live on land or in water and was highly intelligent and very active. In Europe the ancestor of the canine family evolved, soon giving rise to many species of small dogs. About the same time the gnawing rodents, including beavers, squirrels, gophers, mice, and

할 만한 형태의 생명이 되었고, 이 종류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 속에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너구리와 족제비 류(類)의 초기 형태 유골들이 들어 있다.

30,000,000년 전에, 현대적 유형의 포유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이 포유류 동물들 대부분이, 산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언덕들 속에서 살았다; 발톱을 가진 육식하는 것과 구별되는, 발굽이 있는 종류, 육지에서 풀을 뜯는 평원 종류들의 진화가 갑자기 시작하였다. 풀을 뜯어먹는 이 종류들은 다섯 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분화되지 않은 한 가지 종류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되었다. 세 개의 발가락 단계를 지나서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가락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馬)은 이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하였지만, 빙하기 후기까지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코뿔소 종류들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서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 나갔다. 돼지와 멧돼지 그리고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조상이 되었던 돼지 비슷한 작은 창조체도 또한 나타났다. 낙타와 하마가 이 기간 중반 경에 북아메리카에서 발생되었고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나중에, 라마는 남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분의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 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특기할만한 일이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하였는데: 고대의 여우원숭이의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종류들은 순종 여우원숭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도래는 순종(純種) 여우원숭이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계통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하였던 것처럼, 태반을 갖는 하나의 포유동물 전체 종족이 이 기간 동안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서 살았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바다표범, 강치 류(類)를 이루었다.

지구에 있는 조류 생명은 계속 발전되었지만,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뚝가리, 매,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그리고 타조 종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새들 대부분이 실존되었다.

천만 년에 이르는 이 점신세(漸新世)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과 육지 생명과 함께 식물 생명은 크게 진화되었고 오늘날과 흡사한 모습이 되었다. 괄목할만한 분화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생명 대부분의 원조 형태들은 이미 존재하고

rabbits, appeared and soon became a notable form of life, very little change having since occurred in this family. The later deposits of this period contain the fossil remains of dogs, cats, coons, and weasels in ancestral form.

61:2.8 (695.6) 30,000,000 years ago the modern types of mammals began to make their appearance. Formerly the mammals had lived for the greater part in the hills, being of the mountainous types; suddenly there began the evolution of the plains or hoofed type, the grazing species, as differentiated from the clawed flesh eaters. These grazers sprang from an undifferentiated ancestor having five toes and forty-four teeth, which perished before the end of the age. Toe evolution did not progress beyond the three-toed stage throughout this period.

61:2.9 (695.7) The horse, an outstanding example of evolution, lived during these times in both North America and Europe, though his development was not fully completed until the later ice age. While the rhinoceros family appeared at the close of this period, it underwent its greatest expansion subsequently. A small hoglike creature also developed which became the ancestor of the many species of swine, peccaries, and hippopotamuses. Camels and llamas had their origin in North America about the middle of this period and overran the western plains. Later, the llamas migrated to South America, the camels to Europe, and soon both were extinct in North America, though a few camels survived up to the ice age.

61:2.10 (696.1) About this time a notable thing occurr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 early ancestors of the ancient lemurs first made their appearance. While this family cannot be regarded as true lemurs, their coming mark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ne from which the true lemurs subsequently sprang.

61:2.11 (696.2) Like the land serpents of a previous age which betook themselves to the seas, now a whole tribe of placental mammals deserted the land and took up their residence in the oceans. And they have ever since remained in the sea, yielding the modern whales, dolphins, porpoises, seals, and sea lions.

61:2.12 (696.3) The bird life of the planet continued to develop, but with few important evolutionary changes. The majority of modern birds were existent, including gulls, herons, flamingoes, buzzards, falcons, eagles, owls, quails, and ostriches.

61:2.13 (696.4) By the close of this *Oligocene* period, covering ten million years, the plant life, together with the marine life and the land animals, had very largely evolved and was present on earth much as today. Considerable specialization has

있었다.

제 3 장. 현대의 조산기(造山期)—코끼리와 말의 시대

육지의 융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은 지구의 기후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점차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하였지만, 그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이아와 목련들이 그린랜드에서 자랐지만, 아열대성 식물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이러한 온대 기후의 식물들과 나무들은 북쪽 위도 지방들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보다 강한 식물들과 낙엽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

풀 종류들이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들의 이빨이 점차 변화되어 현재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되었다.

25,000,000년 전에, 긴 신(新)시대동안의 육지 융기가 이루어진 후에 잠깐 동안의 침수 형상이 있었다. 록키산맥 지역은 높이 솟아오른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침식된 물질들이 낮은 지역 전체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되었다. 시에라산맥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되었고; 사실,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되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0,000,000년 전에, 포유동물들이 정말로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베링 해협이 반도가 물위에 있었고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아시아로부터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으며, 그들 중에는 네 개의 엄니를 가진 매스토돈과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의 사슴이 나타났고, 북아메리카에는 반추(反芻) 동물들—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 종류들—이 가득 차게 되었으나, 반면에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들은 멸종되었다.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 종류들은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곧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계속 살아남기에 충분할 정도의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었다. 이 시대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큰 몸체이면서 우월한 본질특성과 큰 뇌를 갖지 못한 동물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지능과 적응 능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될 정도의 동물로는 말밖에 없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실존하였던 50가지의 코끼리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15,000,000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 지대들이 융기되었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

subsequently appeared, but the ancestral forms of most living things were then alive.

3. THE MODERN MOUNTAIN STAGE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61:3.1 (696.5) Land elevation and sea segregation were slowly changing the world's weather, gradually cooling it, but the climate was still mild. Sequoias and magnolias grew in Greenland, but the subtropical plants were beginning to migrate southward.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se warm-climate plants and trees had largely disappeared from the northern latitudes, their places being taken by more hardy plants and the deciduous trees.

61:3.2 (696.6) There was a great increase in the varieties of grasses, and the teeth of many mammalian species gradually altered to conform to the present-day grazing type.

61:3.3 (696.7) 25,000,000 years ago there was a slight land submergence following the long epoch of land elevation. The Rocky Mountain region remained highly elevated so that the deposition of erosion material continued throughout the lowlands to the east. The Sierras were well re-elevated; in fact, they have been rising ever since. The great four-mile vertical fault in the California region dates from this time.

61:3.4 (696.8) 20,000,000 years ago was indeed the golden age of mammals. The Bering Strait land bridge was up, and many groups of animals migrated to North America from Asia, including the four-tusked mastodons, short-legged rhinoceroses, and many varieties of the cat family.

61:3.5 (696.9) The first deer appeared, and North America was soon overrun by ruminants — deer, oxen, camels, bison, and several species of rhinoceroses — but the giant pigs, more than six feet tall, became extinct.

61:3.6 (697.1) The huge elephants of this and subsequent periods possessed large brains as well as large bodies, and they soon overran the entire world except Australia. For once the world was dominated by a huge animal with a brain sufficiently large to enable it to carry on. Confronted by the highly intelligent life of these ages, no animal the size of an elephant could have survived unless it had possessed a brain of large size and superior quality. In intelligence and adaptation the elephant is approached only by the horse and is surpassed only by man himself. Even so, of the fifty species of elephants in existence at the opening of this period, only two have survived.

61:3.7 (697.2) 15,000,000 years ago the mountain regions of Eurasia were rising, and there was

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전 세계에 퍼져있었다.

지브롤터 해협이 닫혀졌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반도에 의해서 연결되었지만, 지중해는 프랑스 지역으로 나있는 좁은 수로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흘렀으며, 산봉우리들과 고지대들이 고대의 이 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 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더 후대에는, 이 지중해가 인도양과 연결되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되어 지중해는 한동안 염분을 가진 내륙바다가 되었다.

아이슬란드 반도가 침수되었고 북극해의 물은 대서양의 물과 혼합되었다.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하게 냉각되었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류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포유류 생명은 계속 진화되었다. 말들로 구성된 거대한 무리가 북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들과 합류하였고; 코끼리들의 시대이며 동시에 말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말 종류의 뇌는 동물적 본질특성에서 코끼리 종류의 뇌 다음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나, 깜짝 놀랐을 때 도망치는 고질적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하였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반면에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끼리와 말 둘 모두를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되어 나타났지만, 고양이 과(科)의 동물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곧 도태되었다.

유란시아가 소위 “말(馬)이 필요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품으로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이용하였으며,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사용하였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인간의 문명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날 사람을 위한 무대 준비에 많이 기여하게 하였다.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동일한 조상에서 기인된 원시 유형의 원숭이와 고릴라의 순종 유형이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들 중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들의 선조가 되는 생물체의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개(犬) 과(科)는 몇 개의 군(群)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이리 종류와 여우 종류가 있다; 고양이 종류 중에는 표범 종류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some volcanic activity throughout these regions, but nothing comparable to the lava flows of the Western Hemisphere. These unsettled conditions prevailed all over the world.

61:3.8 (697.3) The Strait of Gibraltar closed, and Spain was connected with Africa by the old land bridge, but the Mediterranean flowed into the Atlantic through a narrow channel which extended across France, the mountain peaks and highlands appearing as islands above this ancient sea. Later on, these European seas began to withdraw. Still later, the Mediterranean was connected with the Indian Ocean, while at the close of this period the Suez region was elevated so that the Mediterranean became, for a time, an inland salt sea.

61:3.9 (697.4) The Iceland land bridge submerged, and the arctic waters commingled with those of the Atlantic Ocean. The Atlantic coast of North America rapidly cooled, but the Pacific coast remained warmer than at present. The great ocean currents were in function and affected climate much as they do today.

61:3.10 (697.5) Mammalian life continued to evolve. Enormous herds of horses joined the camels on the western plains of North America; this was truly the age of horses as well as of elephants. The horse's brain is next in animal quality to that of the elephant, but in one respect it is decidedly inferior, for the horse never fully overcame the deep-seated propensity to flee when frightened. The horse lacks the emotional control of the elephant, while the elephant is greatly handicapped by size and lack of agility. During this period an animal evolved which was somewhat like both the elephant and the horse, but it was soon destroyed by the rapidly increasing cat family.

61:3.11 (697.6) As Urantia is entering the so-called “horseless age,” you should pause and ponder what this animal meant to your ancestors. Men first used horses for food, then for travel, and later in agriculture and war. The horse has long served mankind and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61:3.12 (697.7) The biologic developments of this period contributed much toward the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an. In central Asia the true types of both the primitive monkey and the gorilla evolved, having a common ancestor, now extinct. But neither of these species is concerned in the line of living beings which were, later on, to become the ancestors of the human race.

61:3.13 (697.8) The dog family was represented by several groups, notably wolves and foxes; the cat tribe, by panthers and large saber-toothed tigers, the latter first evolving in North America. The

호랑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 과(科)와 개 과(科)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숫자가 되었다. 족제비, 담비, 수달, 그리고 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식되고 발전되었다.

조류들은 특기할만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 진화되었다. 파충류들은 현대와 같은 유형—뱀, 악어 거북이 종류들—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계 역사상 매우 사건 많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코끼리와 말이 주종을 이룬 이 시대는 중신세(中新世)라고 알려져 있다.

제 4 장. 최근의 대륙—육기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이 시대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육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산맥들이 형성되었고, 하천들의 경로가 바뀌었으며,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10,000,000년 전에, 대륙들의 낮은 지역들 전체에는 지역적인 퇴적층들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되었다. 이 때 잉글랜드와 벨지움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지역은 아직 물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들이 산들의 기슭과 호수들 그리고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 이루어졌다. 이 퇴적층들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띠고 있으며,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호수들이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존재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올랐고; 샤스타와 후드 그리고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造山)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있게 될 빙하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다시 연결되었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되었다.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동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아시아의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영양, 그리고 곰 종류들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고, 반면에 북아메리카 낙타 종류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 종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西半球)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되었다.

앞에 있었던 기간에 존재하던 생물은 대개 계속 진보되고 퍼져 나갔다. 고양이 과(科)의 동물들

modern cat and dog families increased in numbers all over the world. Weasels, martens, otters, and raccoons thrived and developed throughout the northern latitudes.

61:3.14 (698.1) Birds continued to evolve, though few marked changes occurred. Reptiles were similar to modern types — snakes, crocodiles, and turtles.

61:3.15 (698.2) Thus drew to a close a very eventful and interesting period of the world's history. This age of the elephant and the horse is known as the *Miocene*.

4. THE RECENT CONTINENTAL-ELEVATION STAGE THE LAST GREAT MAMMALIAN MIGRATION

61:4.1 (698.3) This is the period of preglacial land elevation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The land was greatly altered in topography. Mountain ranges were born, streams changed their courses, and isolated volcanoes broke out all over the world.

61:4.2 (698.4) 10,000,000 years ago began an age of widespread local land deposits on the lowlands of the continents, but most of these sedimentations were later removed. Much of Europe, at this time, was still under water, including parts of England, Belgium, and France, and the Mediterranean Sea covered much of northern Africa. In North America extensive depositions were made at the mountain bases, in lakes, and in the great land basins. These deposits average only about two hundred feet, are more or less colored, and fossils are rare. Two great fresh-water lakes existed in western North America. The Sierras were elevating; Shasta, Hood, and Rainier were beginning their mountain careers. But it was not until the subsequent ice age that North America began its creep toward the Atlantic depression.

61:4.3 (698.5) For a short time all the land of the world was again joined excepting Australia, and the last great world-wide animal migration took place. North America was connected with both South America and Asia, and there was a free exchange of animal life. Asiatic sloths, armadillos, antelopes, and bears entered North America, while North American camels went to China. Rhinoceroses migrated over the whole world except Australia and South America, but they were extinct in the Western Hemisphere by the close of this period.

61:4.4 (698.6) In general, the life of the preceding period continued to evolve and spread. The cat

이 동물 생명을 지배하였고, 해양 생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다. 대개의 말 종류들은 여전히 세 개의 발톱을 갖고 있었지만, 현대적 유형이 나타났으며; 하마와 기린 모양의 낙타 종류들이 초원 평야에서 말 종류와 합류되었다. 기린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갖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그리고 남아메리카 유형의 원시적 원숭이 종류들이 진화되어 나타났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거대한 그 동물들, 매스토돈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5,000,000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고 북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기원되었던 대륙에서는 홍인종이 도착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다.

기온은 점차로 하강하였고; 육상 식물들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북쪽의 지협들을 건너서 이주하던 동물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북아메리카의 이 반도들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주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던 반도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되었다. 이 때 이후부터는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천만 년에 가까운 이 기간이 마감하게 되었지만,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鮮新世)라고 알려져 있다.

제 5 장. 초기 빙하시대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대한 범위로 높이 솟아올랐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거대한 지역이 30,000피트 이상 융기하였다. 전에는 이 북쪽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北極) 지방의 물은 모두 증발되었으므로, 그 지역들에는 빙하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이러한 육지 융기와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고지대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가 내리게 하였다. 융기되어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20,000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눈덩어리는 곧 고체로 변하였고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family dominated the animal life, and marine life was almost at a standstill. Many of the horses were still three-toed, but the modern types were arriving; llamas and giraffelike camels mingled with the horses on the grazing plains. The giraffe appeared in Africa, having just as long a neck then as now. In South America sloths, armadillos, anteaters, and the South American type of primitive monkeys evolved. Before the continents were finally isolated, those massive animals, the mastodons, migrated everywhere except to Australia.

61:4.5 (698.7) 5,000,000 years ago the horse evolved as it now is and from North America migrated to all the world. But the horse had become extinct on the continent of its origin long before the red man arrived.

61:4.6 (698.8) The climate was gradually getting cooler; the land plants were slowly moving southward. At first it was the increasing cold in the north that stopped animal migrations over the northern isthmuses; subsequently these North American land bridges went down. Soon afterwards the land connection between Africa and South America finally submerged, and the Western Hemisphere was isolated much as it is today. From this time forward distinct types of life began to develop in the Eastern and Western Hemispheres.

61:4.7 (699.1) And thus does this period of almost ten million years' duration draw to a close, and not yet has the ancestor of man appeared. This is the time usually designated as the *Pliocene*.

5. THE EARLY ICE AGE

61:5.1 (699.2) By the close of the preceding period the lands of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nd of northern Europe were highly elevated on an extensive scale, in North America vast areas rising up to 30,000 feet and more. Mild climates had formerly prevailed over these northern regions, and the arctic waters were all open to evaporation, and they continued to be ice-free until almost the close of the glacial period.

61:5.2 (699.3) Simultaneously with these land elevations the ocean currents shifted, and the seasonal winds changed their direction. These conditions eventually produced an almost constant precipitation of moisture from the movement of the heavily saturated atmosphere over the northern highlands. Snow began to fall on these elevated and therefore cool regions, and it continued to fall until it had attained a depth of 20,000 feet. The areas of the greatest depth of snow, together with altitude, determined the central points of subsequent glacial pressure flows. And the ice age persisted just as long as this excessive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이,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었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발견되는 산악지대가 아니다. 빙하 지대의 반은 북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다른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의 얼음 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여 있었다.

지구의 북쪽 지역은, 각각의 얼음 층의 활동과 연관된 확장과 축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섯 차례의 독립적이고도 뚜렷한 빙하 침해를 받았다. 북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되었고, 나중에는 세 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린란드는 완벽하게 뒤덮여 있었고, 아이슬란드는 이동하는 얼음 층 밑에 완벽하게 묻혀 있었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들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프랑스에 이르는 지역에 빙하가 퍼져 있었다.

2,00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첫 번째 빙하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빙하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빙하가 북쪽에 있는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시 그곳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백만 년이 소요되었다. 중앙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캔자스 까지 이르렀으나; 동부와 서부에 있는 빙하 중심지는 그 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었다.

1,500,000년 전에, 거대한 첫 번째 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는 동안, 엄청난 양의 눈이 북아메리카 북동쪽 지역과 그린란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빙하에 의한 두 번째 침해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두 번의 빙하 침해는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신(新)시대 동안, 북아메리카에는 매스토돈, 털로 뒤덮인 거대한 코끼리, 말, 낙타, 사슴, 사향소, 들소, 땅나무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 과(科)와 개 과(科)의 동물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그것들은 이때부터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류의 대다수는 북아메리카에서 멸종되었다.

빙하기 이후로 지구에 있는 육상 그리고 수생 생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의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온화하였다. 빙하 현상은 그것들이 넓은 지역에 퍼지기는 하였지만 결국 지역적인 현상이었다. 해안 지역의 기후는,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와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해안에서 대서양

precipitation continued to cover these northern highlands with this enormous mantle of snow, which soon metamorphosed into solid but creeping ice.

61:5.3 (699.4) The great ice sheets of this period were all located on elevated highlands, not in mountainous regions where they are found today. One half of the glacial ice was in North America, one fourth in Eurasia, and one fourth elsewhere, chiefly in Antarctica. Africa was little affected by the ice, but Australia was almost covered with the antarctic ice blanket.

61:5.4 (699.5) The northern regions of this world have experienced six separate and distinct ice invasions, although there were scores of advances and recessions associated with the activity of each individual ice sheet. The ice in North America collected in two and, later, three centers. Greenland was covered, and Iceland was completely buried beneath the ice flow. In Europe the ice at various times covered the British Isles excepting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and it overspread western Europe down to France.

61:5.5 (699.6) 2,000,000 years ago the first North American glacier started its southern advance. The ice age was now in the making, and this glacier consumed nearly one million years in its advance from, and retreat back toward, the northern pressure centers. The central ice sheet extended south as far as Kansas; the eastern and western ice centers were not then so extensive.

61:5.6 (699.7) 1,500,000 years ago the first great glacier was retreating northward. In the meantime, enormous quantities of snow had been falling on Greenland and o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America, and ere long this eastern ice mass began to flow southward. This was the second invasion of the ice.

61:5.7 (699.8) These first two ice invasions were not extensive in Eurasia. During these early epochs of the ice age North America was overrun with mastodons, woolly mammoths, horses, camels, deer, musk oxen, bison, ground sloths, giant beavers, saber-toothed tigers, sloths as large as elephants, and many groups of the cat and dog families. But from this time forward they were rapidly reduced in numbers by the increasing cold of the glacial period. Toward the close of the ice age the majority of these animal species were extinct in North America.

61:5.8 (700.1) Away from the ice the land and water life of the world was little changed. Between the ice invasions the climate was about as mild as at present, perhaps a little warmer. The glaciers were, after all, local phenomena, though they spread out to cover enormous areas. The coastwise climate varied greatly between the

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지트 사운드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미끄러져 힘차게 노르웨이의 협만 아래의 북해 속으로 내려가던 시기 사이에, 매우 심하게 변화였다.

times of glacial inaction and those times when enormous icebergs were sliding off the coast of Maine into the Atlantic, slipping out through Puget Sound into the Pacific, and thundering down Norwegian fiords into the North Sea.

제 6 장. 빙하시대의 원시인

이러한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 있고 인도 서쪽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아메리카의 여우원숭이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크기가 작은 이 동물들은 대개 뒷다리만을 사용하여 걸어 다녔으며,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매우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생명의 70대 후손 중에서 하나의 새롭고도 높은 동물 종류가 갑자기 변이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반(半) 포유동물—그것들의 선조들보다 크기가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중대한 두뇌 능력을 가진—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세 번째의 지극히 중대한 돌연변이인 영장목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반 포유류 종족 속에는 퇴화 현상이 나타나 원숭이의 조상이 되었다; 그 날 이후로 이러한 인류 계통은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반면에 원숭이 종족들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나 실제적인 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거주 세계로 등록되었다. 진화하는 영장목의 종족 속에서 하나의 돌연변이에 의해, 인류의 실제적인 조상이 되는 두 명의 원시 인간 존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자극적이고 고무적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 토착민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까지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빙기 신(新)시대들의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부근에 도착하였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지게 되었다. 서부 유럽에 있는 동굴들 속에서, 인류의 뼈들이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들의 잔해들과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의 신(新)시대 동안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제 7 장. 계속되는 빙하기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활동들도 진행되었지만, 얼음 층의 활동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

6. PRIMITIVE MAN IN THE ICE AGE

61:6.1 (700.2) The great event of this glacial period was the evolution of primitive man. Slightly to the west of India, on land now under water and among the offspring of Asiatic migrants of the older North American lemur types, the dawn mammals *suddenly* appeared. These small animals walked mostly on their hind legs, and they possessed large brains in proportion to their size and in comparison with the brains of other animals. In the seventieth generation of this order of life a new and higher group of animals *suddenly* differentiated. These new mid-mammals — almost twice the size and height of their ancestors and possessing proportionately increased brain power — had only well established themselves when the Primates, the third vital mutation, *suddenly* appeared. (At this same time, a retrograde development within the mid-mammal stock gave origin to the simian ancestry; and from that day to this the human branch has gone forward by progressive evolution, while the simian tribes have remained stationary or have actually retrogressed.)

61:6.2 (700.3) 1,000,000 years ago Urantia was registered as an *inhabited world*. A mutation within the stock of the progressing Primates *suddenly* produced two primitive human beings, the actual ancestors of mankind.

61:6.3 (700.4) This event occurred at abou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third glacial advance; thus it may be seen that your early ancestors were born and bred in a stimulating, invigorating, and difficult environment. And the sole survivors of these Urantia aborigines, the Eskimos, even now prefer to dwell in frigid northern climes.

61:6.4 (700.5) Human beings were not pres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until near the close of the ice age. But during the interglacial epochs they passed westward around the Mediterranean and soon overran the continent of Europe. In the caves of western Europe may be found human bones mingled with the remains of both tropic and arctic animals, testifying that man lived in these regions throughout the later epochs of the advancing and retreating glaciers.

7. THE CONTINUING ICE AGE

61:7.1 (700.6) Throughout the glacial period other activities were in progress, but the action of the ice

에서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처럼 지형학적으로 뚜렷한 특징의 증거를 남겨놓지 못하였다. 특색 있는 둥근 돌과, 수직으로 생긴 동굴과 호수들 그리고 치환된 암석과 가루가 된 바위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다른 자연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 층은 빙퇴구(氷堆丘)라고 알려진, 완만하게 솟아오르거나 지표면의 굽이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빙하들은 이동된 흔적들—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氷堆石)들—만을 뒤에 남겨놓을 뿐이었다. 이러한 유동 현상들, 특별히 바닥의 빙퇴석들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750,000년 전에, 북아메리카 중앙과 동부의 얼음 지역이 연합한, 네 번째 빙하 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베이니아 중앙까지 확장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 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하였고, 반면에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 층이 확장되지 못하였다.

500,000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진화에 새로운 변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토착 인류 종족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같은 세대 속에서 여섯 가지 색깔의 종족들이 변이 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 때 행성영주가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는 세 개의 얼음 층 중심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쪽에 있는 층은 세인트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되었을 뿐이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에 있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을 정도였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 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하였다.

2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이며 마지막의 빙하 현상이 시작되었다. 북쪽에 있는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는 얼음 지대 위에는 가장 많은 눈이 쌓인 때였다.

이 침해 기간에 세 개의 거대한 얼음 층들이 하나의 광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으며, 서쪽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이 빙하 활동에 동참하였다.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들 중에서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 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북아메리카의 온도는 가장 낮은 상태를 체험하게 되었다.

overshadows all other phenomena in the northern latitudes. No other terrestrial activity leaves such characteristic evidence on the topography. The distinctive boulders and surface cleavages, such as potholes, lakes, displaced stone, and rock flour, are to be found in connection with no other phenomenon in nature. The ice is also responsible for those gentle swells, or surface undulations, known as drumlins. And a glacier, as it advances, displaces rivers and changes the whole face of the earth. Glaciers alone leave behind them those telltale drifts — the ground, lateral, and terminal moraines. These drifts, particularly the ground moraines, extend from the eastern seaboard north and westward in North America and are found in Europe and Siberia.

61:7.2 (701.1) 750,000 years ago the fourth ice sheet, a union of the North American central and eastern ice fields, was well on its way south; at its height it reached to southern Illinois, displacing the Mississippi River fifty miles to the west, and in the east it extended as far south as the Ohio River and central Pennsylvania.

61:7.3 (701.2) In Asia the Siberian ice sheet made its southernmost invasion, while in Europe the advancing ice stopped just short of the mountain barrier of the Alps.

61:7.4 (701.3) 500,000 years ago, during the fifth advance of the ice, a new development accelerated the course of human evolution. Suddenly and in one generation the six colored races mutated from the aboriginal human stock. This is a doubly important date since it also marks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61:7.5 (701.4) In North America the advancing fifth glacier consisted of a combined invasion by all three ice centers. The eastern lobe, however, extended only a short distance below the St. Lawrence valley, and the western ice sheet made little southern advance. But the central lobe reached south to cover most of the State of Iowa. In Europe this invasion of the ice was not so extensive as the preceding one.

61:7.6 (701.5) 250,000 years ago the sixth and last glaciation began.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northern highlands had begun to sink slightly, this was the period of greatest snow deposition on the northern ice fields.

61:7.7 (701.6) In this invasion the three great ice sheets coalesced into one vast ice mass, and all of the western mountains participated in this glacial activity. This was the largest of all ice invasions in North America; the ice moved south over fifteen hundred miles from its pressure centers, and North America experienced its lowest temperatures.

2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란시아의 사건의 행진에서 많은 것을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루시퍼의 반란—이 발생했다.

1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고; 중앙에 있는 얼음 층은 캔자스, 미주리,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 동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바로 이 빙하가, 혀 모양의 긴 형태 또는 둥근 모양의 얼음 층을 앞으로 밀어 보내서, 지금-현재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호수들을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5대호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발달 단계들을 매우 정확하게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흘러들었고,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흘러 허드슨 계곡에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 북쪽 길을 통하여 세인트로렌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해 내었다. 오대호가 현재의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37,000년이 지나갔다.

100,000년 전,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극지방에 있는 거대한 얼음 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축적된 얼음 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한, 그리고 장차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빙하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기는 100,000년 동안 확장되었으며, 북쪽으로의 퇴각이 완료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50,0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온화한 지역들이 그 얼음 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

혹독한 빙하시대로 인하여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되었다. 많은 종류들은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 층에 대처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하여 심하게 도태되었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서 온 땅에 퍼진 동물들 중에는 곰, 들소, 순록, 사향소, 맘모스, 그리고 매스토돈 등이 있었다.

맘모스는 개활(開豁) 목초지를 찾아다녔지만, 매스토돈은 삼림 지역으로 보호된 변두리를 더 좋아하였다. 맘모스는 상당히 후기까지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는 털로 뒤덮이게 되었다. 후대에 백인종에 의해서 들소가 죽은 것처럼, 매스토돈은 홍인종에 의해서 멸종되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시대 동안, 말과 맥 그리고 하마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멸종되었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그리

61:7.8 (701.7) 200,000 years ago, during the advance of the last glacier, there occurred an episode which had much to do with the march of events on Urantia — the Lucifer rebellion.

61:7.9 (701.8) 150,000 years ago the sixth and last glacier reached its farthest points of southern extension, the western ice sheet crossing just over the Canadian border; the central coming down into Kansas, Missouri, and Illinois; the eastern sheet advancing south and covering the greater portion of Pennsylvania and Ohio.

61:7.10 (701.9) This is the glacier that sent forth the many tongues, or ice lobes, which carved out the present-day lakes, great and small. During its retreat the North American system of Great Lakes was produced. And Urantian geologists have very accurately deduced the various stages of this development and have correctly surmised that these bodies of water did, at different times, empty first into the Mississippi valley, then eastward into the Hudson valley, and finally by a northern route into the St. Lawrence. It is thirty-seven thousand years since the connected Great Lakes system began to empty out over the present Niagara route.

61:7.11 (702.1) 100,000 years ago, during the retreat of the last glacier, the vast polar ice sheets began to form, and the center of ice accumulation moved considerably northward. And as long as the polar regions continue to be covered with ice, it is hardly possible for another glacial age to occur, regardless of future land elevations or modification of ocean currents.

61:7.12 (702.1) This last glacier was one hundred thousand years advancing, and it required a like span of time to complete its northern retreat. The temperate regions have been free from the ice for a little over fifty thousand years.

61:7.13 (702.1) The rigorous glacial period destroyed many species and radically changed numerous others. Many were sorely sifted by the to-and-fro migration which was made necessary by the advancing and retreating ice. Those animals which followed the glaciers back and forth over the land were the bear, bison, reindeer, musk ox, mammoth, and mastodon.

61:7.14 (702.1) The mammoth sought the open prairies, but the mastodon preferred the sheltered fringes of the forest regions. The mammoth, until a late date, ranged from Mexico to Canada; the Siberian variety became wool covered. The mastodon persisted in North America until exterminated by the red man much as the white man later killed off the bison.

61:7.15 (702.1) In North America, during the last glaciation, the horse, tapir, llama, and saber-toothed tiger became extinct. In their places

고 물에 사는 돼지 종류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북상하여 그 자리를 메웠다.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이주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특이하게 혼합시켰으며,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아 있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빙하에 의해서 과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떠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이 식물들과 동물들은 유럽에 있는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과 심지어는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洪績世)라고 불리며 2백만 년의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하였다.

35,000년 전에, 지구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大)빙하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의(意義)깊은 이유는 물질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가 다가왔으며 아담의-섭리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완신세(完新世) 또는 빙하기 후대 기간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유류 생명이 발생된 때로부터 빙하가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에 이르는 이야기는 거의 5천만 년에 이르는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마지막—현재의—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 또는 근세(近世)라고 알려져 있다.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되었음]

sloths, armadillos, and water hogs came up from South America.

61:7.16 (702.1) The enforced migration of life before the advancing ice led to an extraordinary commingling of plants and of animals, and with the retreat of the final ice invasion, many arctic species of both plants and animals were left stranded high upon certain mountain peaks, whither they had journeyed to escape destruction by the glacier. And so, today, these dislocated plants and animals may be found high up on the Alps of Europe and even on the Appalachian Mountains of North America.

61:7.17 (702.1) The ice age is the last completed geologic period, the so-called *Pleistocene*, over two million years in length.

61:7.18 (702.1) 35,000 years ago marks the termination of the great ice age excepting in the polar regions of the planet. This date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approximates the arrival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the beginning of the Adamic dispensation, roughly corresponding to the beginning of the *Holocene* or postglacial period.

61:7.19 (702.1) This narrative, extending from the rise of mammalian life to the retreat of the ice and on down to historic times, covers a span of almost fifty million years. This is the last — the current — geologic period and is known to your researchers as the *Cenozoic* or recent-times era.

61:7.20 (702.1) [Sponsored by a Resident Life Carrier.]

제 62 편 여명의 초기 사람 종족

⇨ 061

유랜시아 책

06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2 편 여명의 초기 사람 종족

섹션

소개

제 1 장.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제 2 장. 시조(始祖) 포유동물

제 3 장. 중간-포유동물들

제 4 장. 영장류

제 5 장. 최초의 인간

제 6 장. 인간 마음의 진화

제 7 장.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인정됨

PAPER 62

THE DAWN RACES OF EARLY MA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arly Lemur Types

2. The Dawn Mammals

3. The Mid-Mammals

4. The Primates

5. The First Human Beings

6. Evolution of the Human Mind

7. Recognition as an Inhabited World

소개

약 백만 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인 여우원숭이의 초기 군체(群體)로부터 분기되어진 세 차례의 연속적이고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났다. 이 초기 여우원숭이들의 우세한 유전인자들은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의 서부 계통 곧 후대의 아메리카 계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직접적인 계통이 형성되기 전에, 이 혈통은 아프리카에서 진화된 중앙 생명 이식으로부터 받은 기여로 강화되었다. 동부의 생명 집단은 인간 종족의 실제적인 산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INTRODUCTION

62:0.1 (703.1) ABOUT one million years ago the immediate ancestors of mankind made their appearance by three successive and sudden mutations stemming from early stock of the lemur type of placental mammal. The dominant factors of these early lemurs were derived from the western or later American group of the evolving life plasm. But before establishing the direct line of human ancestry, this strain was reinforced by contributions from the central life implantation evolved in Africa. The eastern life group contributed little or nothing to the actual production of the human species.

제 1 장.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인간 종족들의 선조에 관계되는 초기 여우원숭이들은, 그 당시에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으며 후손이 오늘날에도 생존하고 있는 긴팔원숭이와 꼬리없는 원숭이의 선제하던 종족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현대적 유형의 여우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둘 모두가 공통 조상에서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그 조상은 오래 전에 멸종되었다,

1. THE EARLY LEMUR TYPES

62:1.1 (703.2) The early lemurs concerned in the ancestry of the human species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e-existent tribes of gibbons and apes then living in Eurasia and northern Africa, whose progeny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ime. Neither were they the offspring of the modern type of lemur, though springing from an ancestor common to both but long since extinct.

이러한 초기 여우원숭이들이 서반구(西半球)에서 진화했던 반면, 인류의 직접적인 포유류 조상은 남서부 아시아, 중앙 생명체 이식의 근원 지역에서 그러나 다만 동부 영역들의 경계선에서 발생되었다. 수백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유형의 여우원숭이들은 베링 반도를 지나 서쪽 방향으로 이주하였으며 아시아 해안을 따라 남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였다. 이주하던 이 종족들은, 그 당시에 확대되어 있었던 지중해와 인도 반도의 융기되는 산악 지대 사이에 있는 기후 좋은 영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땅에서 또 다른 그리고 유리한 종족들과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인간 종족의 조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악 지대의 남서쪽에 있는 인도 해안선이 점차적으로 침수되었고, 이 지역의 생명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북쪽을 제외하고는 메소포타미아, 곧 페르시아 반도인 이곳으로 혹은 이곳에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큰길은 전혀 없었고, 그것도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확장됨으로써 반복적으로 단절되었다. 당시에 거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쾌적한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 여우원숭이 유형의 포유류에서의 우월한 후손들로부터 위대한 두 집단, 현대의 유인원 종족과 지금-현재의 인류종족이 솟아났다.

62:1.2 (703.3) While these early lemurs evolved in the Western Hemisp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 mammalian ancestry of mankind took plac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original area of the central life implantation but on the borders of the eastern regions. Several million years ago the North American type lemurs had migrated westward over the Bering land bridge and had slowly made their way southwestward along the Asiatic coast. These migrating tribes finally reached the salubrious region lying between the then expanded Mediterranean Sea and the elevating mountainous regions of the Indian peninsula. In these lands to the west of India they united with other and favorable strains, thus establishing the ancestry of the human race.

62:1.3 (703.4)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seacoast of India southwest of the mountains gradually submerged, completely isolating the life of this region. There was no avenue of approach to, or escape from, this Mesopotamian or Persian peninsula except to the north, and that was repeatedly cut off by the southern invasions of the glaciers. And it was in this then almost paradisiacal area, and from the superior descendants of this lemur type of mammal, that there sprang two great groups, the simian tribes of modern times and the present-day human species.

제 2 장. 시조(始祖) 포유동물

백만 년 전보다 약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 포유동물들, 태반을 가진 포유류 유형의 북아메리카 여우원숭이의 직계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것들은 활동적이고 크기가 3피트에 이르는 작은 창조체들이었다; 그것들은 습관적으로 뒷다리를 사용하여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것들은 털이 많았고 민첩하였으며 원숭이처럼 소리를 냈지만, 유인원 종족과는 달리 고기를 먹었다. 그것들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볼 수 있는 원시형태의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매우 유용한 긴 발가락을 갖고 있었다. 이 때 이후로 인간-이전(以前)족들은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었고 반면에 큰 발가락의 잡을 수 있는 힘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 보다 후대의 원숭이 종족들은 잡을 수 있는 큰 발가락을 갖게 되었지만 인간 유형의 엄지손가락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 시조 포유동물들은 3살 또는 4살이 되었을 때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가능한 수명은 약 20년이였다. 대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새로운 이 종족의 구성원들의 몸체에 대비한 뇌의 크기는, 그 때까지 지구 위에 존재하였던 종족들 중에서 가장 컸다. 그것들은 감정을 상당히

2. THE DAWN MAMMALS

62:2.1 (703.5) A little more than one million years ago the Mesopotamian dawn mammals, the direct descendants of the North American lemur type of placental mammal, *suddenly* appeared. They were active little creatures, almost three feet tall; and while they did not habitually walk on their hind legs, they could easily stand erect. They were hairy and agile and chattered in monkeylike fashion, but unlike the simian tribes, they were flesh eaters. They had a primitive opposable thumb as well as a highly useful grasping big toe. From this point onward the prehuman species successively developed the opposable thumb while they progressively lost the grasping power of the great toe. The later ape tribes retained the grasping big toe but never developed the human type of thumb.

62:2.2 (704.1) These dawn mammals attained full growth when three or four years of age, having a potential life span, on the average, of about twenty years. As a rule offspring were born singly, although twins were occasional.

62:2.3 (704.2) The members of this new species had the largest brains for their size of any animal that had theretofore existed on earth. They

느낄 수 있었고 후대의 원시인의 특성인 수많은 자연본능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무슨 일이든 성공했다 싶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식욕과 성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명확한 성(性)적 선택이 원시 형태의 구애 동작과 상대방 선정을 통해 현시되었다. 그것들은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였으며 가족 관계에서는 매우 부드러운, 수치심과 후회의 감정에 가까운 자아-비하의 감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매우 애정이 깊었고 동료들에게 감동적으로 충성스러웠지만, 환경에 의해서 분리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것들은 키가 작았고, 서식하고 있는 숲에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비정상하게 개발되고 지혜로운 예방 대책을 갖게 되어, 살아남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 한 예로 그것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땅 위에 있는 생명이 당하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인류가 공포심을 갖는 성향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조 포유동물들은 전에 나타났던 것들보다 부족정신을 발달시켰다. 그것들은 집단을 이루려는 성향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추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높았으며, 충분히 화가 났을 때에는 불같은 기질을 나타냈다. 아무튼 그들의 호전적인 자연본성은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보다 우월한 집단들은 보다 열등한 이웃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된 종족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그것들은 오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있는 보다 작은 창조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육식을 하지 않는 원숭이 종류의 보다 오래된 그 종족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였다.

공격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 동물들은 증식되어 메소포타미아 반도에 천년 이상 동안 퍼져 있었으며, 육체 유형과 전반적인 지능이 계속 발전되었다. 다음 신(新)시대의 문을 여는 발전이 발생한 것은—유란시아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의 조상이 갑자기 파생된—, 가장 발전된 여우원숭이 조상의 유형으로부터 기원된 새로운 이 종족이 나타난 후로 70세대가 지난 후였다.

제 3 장. 중간-포유동물들

시조 포유동물들 생애의 초기에, 민첩한 이 창조체들의 나무 꼭대기 거처에서 우월한 한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었다. 그것들은 그 조상에 비하여 실제로 훨씬 잘생긴 작은 창조체이었다. 그것들의 몸에는 털이 거의 없었지만, 온화하고 일정한 기후에서 사는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experienced many of the emotions and shared numerous instincts which later characterized primitive man, being highly curious and exhibiting considerable elation when successful at any undertaking. Food hunger and sex craving were well developed, and a definite sex selection was manifested in a crude form of courtship and choice of mates. They would fight fiercely in defense of their kindred and were quite tender in family associations, possessing a sense of self-abasement bordering on shame and remorse. They were very affectionate and touchingly loyal to their mates, but if circumstances separated them, they would choose new partners.

62:2.4 (704.3) Being small of stature and having keen minds to realize the dangers of their forest habitat, they developed an extraordinary fear which led to those wise precautionary measures that so enormously contributed to survival, such as their construction of crude shelters in the high treetops which eliminated many of the perils of ground life. The beginning of the fear tendencies of mankind more specifically dates from these days.

62:2.5 (704.4) These dawn mammals developed more of a tribal spirit than had ever been previously exhibited. They were, indeed, highly gregarious but nevertheless exceedingly pugnacious when in any way disturbed in the ordinary pursuit of their routine life, and they displayed fiery tempers when their anger was fully aroused. Their bellicose natures, however, served a good purpose; superior groups did not hesitate to make war on their inferior neighbors, and thus, by selective survival, the species was progressively improved. They very soon dominated the life of the smaller creatures of this region, and very few of the older noncarnivorous monkeylike tribes survived.

62:2.6 (704.5) These aggressive little animals multiplied and spread over the Mesopotamian peninsula for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constantly improving in physical type and general intelligence. And it was just seventy generations after this new tribe had taken origin from the highest type of lemur ancestor that the next epoch-making development occurred — the sudden differentiation of the ancestors of the next vital step in the evolution of human beings on Urantia.

3. THE MID-MAMMALS

62:3.1 (704.6) Early in the career of the dawn mammals, in the treetop abode of a superior pair of these agile creatures, twins were born, one male and one female. Compared with their ancestors, they were really handsome little creatures. They had little hair on their bodies, but this was no disability as they lived in a warm and

이 새끼들은 자라서 4피트를 조금 넘는 키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컸으며, 보다 긴 다리와 짧은 팔을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거의 완전하게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었고, 현재의 인간의 엄지손가락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였다. 그것들은 후대의 인간 종족들의 발과 거의 마찬가지로 견기에 편한 발을 사용하여 똑바로 걸었다.

그들의 뇌는 인간에 비하여 열등하고 작았지만, 그들의 조상에 비해서는 매우 우월하였고 훨씬 컸다. 그 쌍둥이들은 일찍부터 우월한 지능을 나타냈고 곧 전체 시조 포유동물들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고, 사회 조직과 노동의 미숙한 경제적 분할의 초기 형태를 실제로 제정하였다. 이 둘은 짝을 이루었고 곧 자기들과 거의 비슷한 21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키는 4피트를 조금 넘었고 조상이 되는 종족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새로 나타난 이 집단은 중간-포유동물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새로 나타나고 우월한 이 집단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격렬한 그 투쟁이 끝났을 때에는, 시조 포유동물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고 조상이 되는 종족들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숫자는 적지만 보다 힘이 세고 지능이 높은, 파생된 이 종족들은 그들의 조상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15,000년 동안 (600 세대), 이 창조체는 이 지역에서 세상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전에 있었던 거대하고 공격적인 모든 동물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지역에 사는 큰 짐승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고, 고양이 과(科)의 보다 큰 종들, 사자와 호랑이는 지구의 표면 중에서 특이하게 보호되고 구석진 이곳으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중간-포유동물들은 점점 용맹스럽게 되었고, 그들이 있던 창조계의 구석을 전체를 정복하였다.

선조 종들과 비교해 볼 때, 중간-포유동물들은 모든 면에서 진보되어 있었다. 그들의 잠재 수명도 25년 정도로 길어졌다. 새로운 이 종들에서 초보적인 여러 개의 인간적 특색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조상이 보여주었던 타고난 성향들 외에, 이 중간-포유동물들은 어떤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뚜렷한 저장 본능을 소유하였고; 나중에 먹기 위하여 음식을 감출 수 있었으며 방어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유형의 둥근 돌이나 부드러운 원형 자갈들을 수집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였다.

이러한 중간-포유동물들은 처음으로 분명한 건축 성향을 나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지은 그들의 집과 구멍이 많은 지하 대피소를 경쟁적으로

equable climate.

62.3.2 (705.1) These children grew to be a little over four feet in height. They were in every way larger than their parents, having longer legs and shorter arms. They had almost perfectly opposable thumbs, just about as well adapted for diversified work as the present human thumb. They walked upright, having feet almost as well suited for walking as those of the later human races.

62.3.3 (705.2) Their brains were inferior to, and smaller than, those of human beings but very superior to, and comparatively much larger than, those of their ancestors. The twins early displayed superior intelligence and were soon recognized as the heads of the whole tribe of dawn mammals, really instituting a primitive form of social organization and a crude economic division of labor. This brother and sister mated and soon enjoyed the society of twenty-one children much like themselves, all more than four feet tall and in every way superior to the ancestral species. This new group formed the nucleus of the mid-mammals.

62.3.4 (705.3) When the numbers of this new and superior group grew great, war, relentless war, broke out; and when the terrible struggle was over, not a single individual of the pre-existent and ancestral race of dawn mammals remained alive. The less numerous but more powerful and intelligent offshoot of the species had survived at the expense of their ancestors.

62.3.5 (705.4) And now, for almost fifteen thousand years (six hundred generations), this creature became the terror of this part of the world. All of the great and vicious animals of former times had perished. The large beasts native to these regions were not carnivorous, and the larger species of the cat family, lions and tigers, had not yet invaded this peculiarly sheltered nook of the earth's surface. Therefore did these mid-mammals wax valiant and subdue the whole of their corner of creation.

62.3.6 (705.5) Compared with the ancestral species, the mid-mammals were an improvement in every way. Even their potential life span was longer, being about twenty-five years. A number of rudimentary human traits appeared in this new species. In addition to the innate propensities exhibited by their ancestors, these mid-mammals were capable of showing disgust in certain repulsive situations. They further possessed a well-defined hoarding instinct; they would hide food for subsequent use and were greatly given to the collection of smooth round pebbles and certain types of round stones suitable for defensive and offensive ammunition.

62.3.7 (705.6) These mid-mammals were the first to exhibit a definite construction propensity, as shown in their rivalry in the building of both treetop homes

만드는 것에서 잘 나타났으며; 나무 위와 땅 밑에 동시적으로 집을 지어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최초의 포유동물 중이었다. 그들은 나무들을 서식지로써 거의 저버렸다, 낮에는 땅 위에 있었고 밤에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숫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결국에는 심각한 양식 경쟁과 성(性)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거의 모든 종족이 멸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쟁은 100마리도 채 못 되는 한 집단이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평화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고, 자기들만 살아남게 된 이 종족은 나무 위에 새로운 잠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다소 평화로운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하게 되었다.

인간-이전(以前)족의 너희 조상들이 때때로 소멸을 모면했던 그렇게 좁은 경계선들을 너희는 거의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모든 인간성의 조상이 되는 개구리가 어떤 특정한 기회에 2인치 조금 덜 뛰었다면, 진화의 전 과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시조-포유동물 종족의 직계 여우원숭이 모습의 어미는 보다 발전된 새로운 포유동물 계층의 조상을 낳기 전에 다섯 차례 이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영장목 쌍둥이를 낳게 될 그 어미가 자고 있던 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였다. 중간-포유동물인 이 동물 부모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일곱 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세 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벼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 진화하는 동물들은 거의 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나무 꼭대기의 집이 부서진 이 부부는 중간-포유동물 종들 중에서 더 많이 진보된 집단의 실제적인 영도자였으며; 더욱 발달된 지능을 가진 집단들을 포함하여 반 이상의 종족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지역으로부터 2마일 가량 이동하였고 새로운 나무 꼭대기의 거주지들과 땅 밑의 은신처들—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대피소—을 짓기 시작하였다.

집을 다 짓고 난 직후에, 수많은 분투를 통하여 노련한 체험을 가진 이 부부는 자랑스러운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고, 그것들은 그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동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전(以前)족의 진화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를 제공하는 최초의 새로운 종의 영장목이었기 때문이다.

이 영장목 쌍둥이의 탄생과 동시에, 다른 부부—중간-포유동물 종족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컷과 암컷,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저능한 부부—도 역시 쌍둥이를 낳았다. 암수 한 쌍의 이 쌍둥이는 정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고; 먹이를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먹이를 찾는 일에 곧 모든 흥미를 잃게 되었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쌍둥이들은 오늘날 유인원의 시조가 되었다. 그 후손들은 온화한 기후와 열대성 과일들이 풍성한 따듯

and their many-tunneled subterranean retreats; they were the first species of mammals ever to provide for safety in both arboreal and underground shelters. They largely forsook the trees as places of abode, living on the ground during the day and sleeping in the treetops at night.

62:3.8 (705.7) As time passed, the natural increase in numbers eventually resulted in serious food competition and sex rivalry, all of which culminated in a series of internecine battles that nearly destroyed the entire species. These struggles continued until only one group of less than one hundred individuals was left alive. But peace once more prevailed, and this lone surviving tribe built anew its treetop bedrooms and once again resumed a normal and semipeaceful existence.

62:3.9 (705.8) You can hardly realize by what narrow margins your prehuman ancestors missed extinction from time to time. Had the ancestral frog of all humanity jumped two inches less on a certain occasion, the whole course of evolution would have been markedly changed. The immediate lemurlike mother of the dawn-mammal species escaped death no less than five times by mere hairbreadth margins before she gave birth to the father of the new and higher mammalian order. But the closest call of all was when lightning struck the tree in which the prospective mother of the Primates twins was sleeping. Both of these mid-mammal parents were severely shocked and badly burned; three of their seven children were killed by this bolt from the skies. These evolving animals were almost superstitious. This couple whose treetop home had been struck were really the leaders of the more progressive group of the mid-mammal species; and following their example, more than half the tribe, embracing the more intelligent families, moved about two miles away from this locality and began the construction of new treetop abodes and new ground shelters — their transient retreats in time of sudden danger.

62:3.10 (706.1) So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home, this couple, veterans of so many struggles, found themselves the proud parents of twins, the most interesting and important animals ever to have been born into the world up to that time, for they were the first of the new species of *Primates* constituting the next vital step in prehuman evolution.

62:3.11 (706.2) Contemporaneously with the birth of these Primates twins, another couple — a peculiarly retarded male and female of the mid-mammal tribe, a couple that wer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inferior — also gave birth to twins. These twins, one male and one female, were indifferent to conquest; they were concerned only with obtaining food and, since they would not eat flesh, soon lost all interest in seeking prey. These retarded twins became the founders of the modern

한 남쪽 지역을 찾아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초기 유형의 긴팔원숭이와 꼬리 없는 원숭이와 섞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종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었으며, 결국 크게 열등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포유동물, 그 종족에서 동시에 태어났고 나중에 서로 두 쌍의 쌍둥이들로의 분리가 발생하였던 종족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등한 쌍은 현대적 유형의 원숭이, 개코 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로 변하였고; 우월한 쌍은 인간으로 진화하는 향상되는 계통으로 계속 발전되었다.

현대적 인간과 유인원(類人猿)은 같은 종류와 종족으로부터 유래되었지만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조상은 중간-포유류 종족으로부터 도태되어 남은 우월한 혈통으로부터 내려왔고; 반면에 현대적 유인원 종류는 (이미 있었던, 여우원숭이, 긴팔원숭이, 꼬리 없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다른 동물들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중간-포유동물 집단 중에서 가장 열등한 한 쌍,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기 종족들 간의 격렬한 전투가 있는 동안 2주 이상 지하에 있는 음식을 보관하는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전쟁 상태가 모두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 유일하게 생존되게 된 그 동물들의 후손으로부터 연유되었다.

제 4 장. 영장류

우월한 쌍둥이가 태어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중간-포유동물 종족의 인도하는 두 명의 구성원, 한 수컷과 한 암컷에 이르게 된다; 이들 새끼 동물들은 특이한 계층이었다; 부모들보다도 몸에 털이 적게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일어서서 걸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뒷다리로 걷기 위하여 배워야 했지만, 이 영장목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것들의 키는 5피트를 약간 넘었고, 같은 종족의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머리가 더 크게 자랐다. 신호와 소리를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지만, 새로운 이 신호들을 무리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결코 없었다.

약 14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종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부족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영장목 종족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 창조체들을 영장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 가계 자체의 직접적인 직계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영장목은 그 당시에 남쪽 바다로 뻗어 나온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을 점유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비교적 지능이 낮은 종족과 그것에 가깝게 관련된 종족들은 반도

simian tribes. Their descendants sought the warmer southern regions with their mild climates and an abundance of tropical fruits, where they have continued much as of that day except for those branches which mated with the earlier types of gibbons and apes and have greatly deteriorated in consequence.

62.3.12 (706.3) And so it may be readily seen that man and the ape are related only in that they sprang from the mid-mammals, a tribe in which there occurred the contemporaneous birth and subsequent segregation of two pairs of twins: the inferior pair destined to produce the modern types of monkey, baboon, chimpanzee, and gorilla; the superior pair destined to continue the line of ascent which evolved into man himself.

62.3.13 (706.4) Modern man and the simians did spring from the same tribe and species but not from the same parents. Man's ancestors are descended from the superior strains of the selected remnant of this mid-mammal tribe, whereas the modern simians (excepting certain pre-existent types of lemurs, gibbons, apes, and other monkeylike creatures) are the descendants of the most inferior couple of this mid-mammal group, a couple who only survived by hiding themselves in a subterranean food-storage retreat for more than two weeks during the last fierce battle of their tribe, emerging only after the hostilities were well over.

4. THE PRIMATES

62.4.1 (706.5) Going back to the birth of the superior twins, one male and one female, to the two leading members of the mid-mammal tribe: These animal babies were of an unusual order; they had still less hair on their bodies than their parents and, when very young, insisted on walking upright. Their ancestors had always learned to walk on their hind legs, but these Primates twins stood erect from the beginning. They attained a height of over five feet, and their heads grew larger in comparison with others among the tribe. While early learn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means of signs and sounds, they were never able to make their people understand these new symbols.

62.4.2 (707.1) When about fourteen years of age, they fled from the tribe, going west to raise their family and establish the new species of Primates. And these new creatures are very properly denominated *Primates* since they were the direct and immediate animal ancestors of the human family itself.

62.4.3 (707.2) Thus it was that the Primates came to occupy a region on the west coast of the Mesopotamian peninsula as it then projected into the southern sea, while the less intelligent and

끝 부분과 동쪽 해안선에 살고 있었다.

영장목은 그들의 조상인 중간-포유동물보다 더 인간에게 가까웠고 동물과는 덜 닮았다. 새로운 이 종족의 골격 구조는 원시 인간 종족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였다. 손과 발은 인간과 거의 같은 유형으로 발달되었고, 그 창조체는 후대의 인간들 후손과 마찬가지로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뛸 수도 있었다. 그것들은 전에 있던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나무에서 내려와 살았다. 점점 더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선천적인 두뇌 힘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하였다.

영장목은 감정적인 자연본성에 있어서는 그 조상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들의 모든 성향은 보다 인간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그것들은 정말로 관란하고 우월한 동물들이었으며, 10살 정도가 되면 성숙한 상태가 되었고 자연적인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였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기간 동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원시 시대에 자연적인 수명을 다 사는 동물들은 극히 드물었다; 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너무 격렬하였다.

그리고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기원된 이후로 약 21,000년에 이르는, 거의 900 세대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지난 후에, 영장목은 갑자기 현저하게 다른 두 명의 창조체들, 최초의 진짜 인간 존재들을 탄생시켰다.

그리하여, 북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에서 발생한 시조 포유동물로부터 중간-포유동물이 기원되었고, 다시 이 중간-포유동물은 원시 인간 종족의 직계 조상인, 우월한 영장목을 발생시켰다. 영장목 종족들은 인간 진화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비범한 이 종족들은 5,000년이 지나기 전에 모두 멸종되었다.

제 5 장. 최초의 인간

서기 1934년을 기점으로 하여 꼭 993,419년 전에 최초의 인간들 두 사람이 태어났다.

특출한 이 두 창조체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은 그들의 몇 대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인간과 똑같았고, 그들의 다리는 지금-현재의 인간 종족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기어 다니지 않았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의 움켜잡는 기능은 없어져, 완벽하게 없어져버렸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에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이 하였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closely related tribes lived around the peninsula point and up the eastern shore line.

62.4.4 (707.3) The Primates were more human and less animal than their mid-mammal predecessors. The skeletal proportions of this new species we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primitive human races. The human type of hand and foot had fully developed, and these creatures could walk and even run as well as any of their later-day human descendants. They largely abandoned tree life, though continuing to resort to the treetops as a safety measure at night, for like their earlier ancestors, they were greatly subject to fear. The increased use of their hands did much to develop inherent brain power, but they did not yet possess minds that could really be called human.

62.4.5 (707.4) Although in emotional nature the Primates differed little from their forebears, they exhibited more of a human trend in all of their propensities. They were, indeed, splendid and superior animals, reaching maturity at about ten years of age and having a natural life span of about forty years. That is, they might have lived that long had they died natural deaths, but in those early days very few animals ever died a natural death; the struggle for existence was altogether too intense.

62.4.6 (707.5) And now, after almost nine hundred generations of development, covering about twenty-one thousand years from the origin of the dawn mammals, the Primates *suddenly* gave birth to two remarkable creatures, the first true human beings.

62.4.7 (707.6) Thus it was that the dawn mammals, springing from the North American lemur type, gave origin to the mid-mammals, and these mid-mammals in turn produced the superior Primates, who became the immediate ancestors of the primitive human race. The Primates tribes were the last vital link in the evolution of man, but in less than five thousand years not a single individual of these extraordinary tribes was left.

5. THE FIRST HUMAN BEINGS

62.5.1 (707.7) From the year A.D. 1934 back to the birth of the first two human beings is just 993,419 years.

62.5.2 (707.8) These two remarkable creatures were true human beings. They possessed perfect human thumbs, as had many of their ancestors, while they had just as perfect feet as the present-day human races. They were walkers and runners, not climbers; the grasping function of the big toe was absent, completely absent. When danger drove them to the treetops, they climbed just like the humans of today would. They would climb up the trunk of a tree like a bear and not as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꼼처럼 나무 등치를 잡고 올라갔다.

최초의 이 인간 존재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12살이 되었을 때 충만한 성인이 되었고 잠재적인 수명은 약 75년에 이르렀다.

이 인간 쌍둥이에게는 일찍부터 새로운 감정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물들과 다른 존재들 모두에 대하여 감탄하는 감정을 체험하였고 상당한 허무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진정으로 인간 감정의 새로운 집합들, 경배에 찬 집합, 경외심, 존경심, 겸손함, 그리고 심지어는 원시 형태의 감사까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자연 현상들에 대한 무지와 관련된 두려움은 장차 원시 형태의 종교가 발생되게 하였다.

이들 원시 인간들에 현시된 그러한 인간적 감정들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정서들도 초보적인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그들은 동정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치욕감을 약간 인식할 수 있었고, 사랑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며, 현저한 질투심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최초의 이 두 인간들—쌍둥이—은 그들의 영광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그들은 너무나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8살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사실, 그들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 이었다.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말로 교통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10살이 되었을 때에는 약 50여 가지에 이르는 관념들에 대한 개선된 신호와 단어언어를 만들었고 그들의 선조들의 교통할 수 있는 미숙한 기법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자기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신호들과 기호들 중에서 일부분밖에 가르칠 수 없었다.

9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청명한 날, 그들은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여행하였고 중대한 의논을 하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천상(天上)의 모든 지능 존재들은,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한낮의 이 밀회에서의 활동행위들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거기에 있었다. 사건 많은 이 날에, 그들은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마침내 자신들의 열등한 동물적 연관-동료들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도록 한 여러 차례의 합의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종족의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우리 모두가, 조그마한 이들 두 미개인들이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줄 수 없었다. 그러나 행성 기능의 허용 한계들 안에서, 생명운반자들인 우리들 모두는 우리

would a chimpanzee or a gorilla, swinging up by the branches.

62:5.3 (708.1) These first human beings (and their descendants) reached full maturity at twelve years of age and possessed a potential life span of about seventy-five years.

62:5.4 (708.2) Many new emotions early appeared in these human twins. They experienced admiration for both objects and other beings and exhibited considerable vanity. But the most remarkable advance in emotional development was the sudden appearance of a new group of really human feelings, the worshipful group, embracing awe, reverence, humility, and even a primitive form of gratitude. Fear, joined with ignorance of natural phenomena, is about to give birth to primitive religion.

62:5.5 (708.3) Not only were such human feelings manifested in these primitive humans, but many more highly evolved sentiments were also present in rudimentary form. They were mildly cognizant of pity, shame, and reproach and were acutely conscious of love, hate, and revenge, being also susceptible to marked feelings of jealousy.

62:5.6 (708.4) These first two humans — the twins — were a great trial to their Primates parents. They were so curious and adventurous that they nearly lost their lives on numerous occasions before they were eight years old. As it was, they were rather well scarred up by the time they were twelve.

62:5.7 (708.5) Very early they learned to engage in verbal communication; by the age of ten they had worked out an improved sign and word language of almost half a hundred ideas and had greatly improved and expanded the crude communicative technique of their ancestors. But try as hard as they might, they were able to teach only a few of their new signs and symbols to their parents.

62:5.8 (708.6) When about nine years of age, they journeyed off down the river one bright day and held a momentous conference. Every celestial intelligence stationed on Urantia, including myself, was present as an observer of the transactions of this noontide tryst. On this eventful day they arrived at an understanding to live with and for each other, and this was the first of a series of such agreement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decision to flee from their inferior animal associates and to journey northward, little knowing that they were thus to found the human race.

62:5.9 (708.7) While we were all greatly concerned with what these two little savages were planning, we were powerless to control the working of their minds; we did not — could not — arbitrarily influence their decisions. But within the permissible limits of planetary function, we, the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 쌍둥이 인간들을 북쪽으로, 그리고 털이 많고 부분적으로 나무 위에서 사는 무리들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지능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쌍둥이는 이주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감독에 의해서 그들은 북쪽으로 이주하여, 영장목 종족에 속하는 그들의 열등한 친척들과의 섞임을 통하여 두루 생물학적으로 퇴화될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외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들이 고향 삼림으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긴 팔원숭이들의 습격을 받아 그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지성은 갖고 있지 못하였지만,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포유류가 갖는 높은 차원의 훌륭한 애정을 소유하고 있었고, 훌륭한 그 쌍둥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담하게 바쳤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남편이 지원군들과 함께 도착하여 침입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젊은 부부가 인간 종족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 연관-동료들을 저버린 직후에, 그들의 영장목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그는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른 자녀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에도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신의 영리한 자식을 잃게 되자, 평범한 자기 동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보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숲 속에 들어가 방황하다가 호전적인 긴팔원숭이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었다.

제 6 장. 인간 마음의 진화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운반자자인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 원형질을 지구에 있는 물속에 심었던 날로부터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감시하는 과정을 지내왔으며, 자연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실제적인 지능 존재이자 의지적인 존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최극의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지구에 도착하였을 때 유란시아에 배치된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기능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그 쌍둥이의 정신적인 발전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행성 생명의 긴 진화 발전 과정에 두루, 지칠 줄 모르는 이 마음 사명활동자들은 점차적으로 우월해지는 동물 창조체들의 연속적으로 수용 능력이 확대되는 두뇌와 접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계속하여 점점 더 키워나갔다.

처음에는 원시 동물 생명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행위에 직관의 영만이 기능할 수 있었다. 더 높은 형태들의 다양화로, 납득의 영은 관념들의 임의적인 관계적-연합이라는 선물을 그러한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우리는 용기의 영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화하는 동물들은 방어적인 자아-의식의 미숙한 형태를 실제적으로 개발하였다. 포유류가 출현한 이후로, 우리들은 지식의 영이 점점 더 많이 현시되

Life Carriers, together with our associates, all conspired to lead the human twins northward and far from their hairy and partially tree-dwelling people. And so, by reason of their own intelligent choice, the twins did *migrate*, and because of our supervision they migrated *northward* to a secluded region where they escaped the possibility of biologic degradation through admixture with their inferior relatives of the Primates tribes.

62:5.10 (708.8) Shortly before their departure from the home forests they lost their mother in a gibbon raid. While she did not possess their intelligence, she did have a worthy mammalian affection of a high order for her offspring, and she fearlessly gave her life in the attempt to save the wonderful pair. Nor was her sacrifice in vain, for she held off the enemy until the father arrived with reinforcements and put the invaders to rout.

62:5.11 (709.1) Soon after this young couple forsook their associates to found the human race, their Primates father became disconsolate — he was heartbroken. He refused to eat, even when food was brought to him by his other children. His brilliant offspring having been lost, life did not seem worth living among his ordinary fellows; so he wandered off into the forest, was set upon by hostile gibbons and beaten to death.

6. EVOLUTION OF THE HUMAN MIND

62:6.1 (709.2) We, the Life Carriers on Urantia, had passed through the long vigil of watchful waiting since the day we first planted the life plasm in the planetary waters, and naturally the appearance of the first really intelligent and volitional beings brought to us great joy and supreme satisfaction.

62:6.2 (709.3) We had been watching the twins develop mentally through our observa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ssigned to Urantia at the time of our arrival on the planet. Throughout the long evolutionary development of planetary life, these tireless mind ministers had ever registered their increasing ability to contact with the successively expanding brain capacities of the progressively superior animal creatures.

62:6.3 (709.4) At first only the *spirit of intuition* could function in the instinctive and reflex behavior of the primordial animal life. With the differentiation of higher types, the *spirit of understanding* was able to endow such creatures with the gift of spontaneous association of ideas. Later on we observed the *spirit of courage* in operation; evolving animals really developed a crude form of protective self-consciousness. Subsequent to the

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발전된 포유류의 진화에 의해서, 원시적인 사회형태의 개발과 집단 본능이 커진 결과로, 조연의 영이 작동되게 되었다.

시조 포유동물과 중간-포유동물 그리고 영장목으로 발전되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조 영들의 점점 더 증강된 봉사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마음 사명활동자들인 나머지 두 가지가 유란시아 형태의 진화적인 마음에 기능될 수 없었다.

경배의 영이, 쌍둥이 중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마음과, 그리고 바로 직후에는 남자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게 된 그 날—쌍둥이의 나이가 열 살 정도였다—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인간 마음과 아주 가깝게 동족이 된 어떤 것이 최고점에 도달하였음을 알았고; 약 1년쯤 뒤에, 그들이 최종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집으로부터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는 심사숙고한 생각과 목적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 때부터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 마음들을 인지하게 된 이 두 사람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일곱 보조 마음-영들이 동원되는 직계의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충만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기다려왔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란시아에서의 지적 창조체들을 진화시키려는 우리들의 길고 긴 노력의 실현이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 7 장.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인정됨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 쌍둥이들이 도망친 하루 뒤 정오에, 유란시아의 행성 점수-초점에 우주 순환회로 신호들의 시험적인 초기 섬광이 발생하였다. 물론 우리들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임박하고 있는 그 실현과 함께 모두가 들떠 있었다; 이 세계가 생명-실험실이었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지능 생명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고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결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 쌍둥이들이 가출한지 삼 일째 되던 날, 그리고 생명운반자 무리단이 떠나기 전에, 초기 행성 순환회로를 설립하는 네바돈의 천사장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유란시아에 사건 많은 날이었던 그 날, 적은 숫자의 우리들은 우주 통신이 이루어지는 행성 극점(極點) 근처에 모였으며, 지구에 새롭게 설립된 마음 순환회로에 대하여 구원자별로부터 첫 번째 소식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이 메시지는 천사장 무리단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읽혀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appearance of the mammalian groups, we beheld the *spirit of knowledge* manifesting itself in increased measure. And the evolution of the higher mammals brought the function of the *spirit of counsel*, with the resulting growth of the herd instinct and the beginnings of primitive social development.

62:6.4 (709.5) Increasingly, on down through the dawn mammals, the mid-mammals, and the Primates, we had observed the augmented service of the first five adjutants. But never had the remaining two, the highest mind ministers, been able to function in the Urantia type of evolutionary mind.

62:6.5 (709.6) Imagine our joy one day — the twins were about ten years old — when the *spirit of worship* made its first contact with the mind of the female twin and shortly thereafter with the male. We knew that something closely akin to human mind was approaching culmination; and when, about a year later, they finally resolved, as a result of meditative thought and purposeful decision, to flee from home and journey north, then did the *spirit of wisdom* begin to function on Urantia and in these two now recognized human minds.

62:6.6 (709.7) There was an immediate and new order of mobiliza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We were alive with expectation; we realized that the long-awaited-for hour was approaching; we knew we were upon the threshold of the realization of our protracted effort to evolve will creatures on Urantia.

7. RECOGNITION AS AN INHABITED WORLD

62:7.1 (709.8) We did not have to wait long. At noon, the day after the runaway of the twins, there occurred the initial test flash of the universe circuit signals at the planetary reception-focus of Urantia. We were, of course, all astir with the realization that a great event was impending; but since this world was a life-experiment station, we had not the slightest idea of just how we would be apprised of the recognition of intelligent life on the planet. But we were not long in suspense. On the third day after the elopement of the twins, and before the Life Carrier corps departed, there arrived the Nebadon archangel of initial planetary circuit establishment.

62:7.2 (710.1) It was an eventful day on Urantia when our small group gathered about the planetary pole of space communication and received the first message from Salvington over the newly established mind circuit of the planet. And this first message, dictated by the chief of the archangel corps, said: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운반자들에게—인사의 말을 전한다! 의지 존엄의 마음이 유란시아에 실존하게 되었다는 신호가 네바돈의 본부에 등록된 것을 축하하면서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확실하게 전한다. 그 쌍둥이들이 북쪽으로 도피하고 그들의 열등한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자손을 격리시키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결정이 감지되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 있어서 첫 번째의 마음의 결정—인간 유형의 마음—이었으며, 이를 인정하는 이 첫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신 순환회로를 자동적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 순환회로를 타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로부터, 우리가 정착시켰던 생명 원형들에 우리, 곧 이곳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이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된, 축하 인사가 도착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진보에 관한 관련사들 안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 생명운반자들은 행성 진화 계획들의 자연적인 진행에 독단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언제까지나 끼여든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을 조절해도 좋다는 것과,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 원형질을 보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보통과는 다른 감독체제이기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언젠가는 중단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고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인 루시퍼로부터 아름다운 메시지가 행성에 전달되었다. 이제 그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우두머리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들었고 예루셈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의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유란시아에서의 생명운반자들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사타니아 체계에 설립된 것처럼 네바돈의 생명 원형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들이 수고하였던 것들에 대한 장래의 모든 비평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었다.

구원자별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으로부터 온 이 메시지들은, 행성에 대한 오랜 동안의 생명운반자들의 감독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의무에 충실하였고, 오직 일곱 보조 마음-영들과 주(主)물리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 경배를 드리고 상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행성의 진화적 창조체들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완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집단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다. 유란시아는 생명-변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운반자들 중에서 선임자 둘이 열 두 보좌관들과 함께 남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으며, 나는 이 집단들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그 후로 항상 유란시아에 남아 있다.

유란시아가 네바돈의 우주에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식된 것은 (서기 1934년으로부터) 정확하게 993,408년 전이었다. 생물학적인 진화가 의지 존귀성을 갖는 인간 차원을 다시 한 번 성취하였다; 사타니아에 있는 606번 행

62.7.3 (710.2) “To the Life Carriers on Urantia — Greetings! We transmit assurance of great pleasure on Salvington, Edentia, and Jerusem in honor of the registration on the headquarters of Nebadon of the signal of the existence on Urantia of mind of will dignity. The purposeful decision of the twins to flee northward and segregate their offspring from their inferior ancestors has been noted. This is the first decision of mind — the human type of mind — on Urantia and automatically establishes the circuit of communication over which this initial message of acknowledgment is transmitting.”

62.7.4 (710.3) Next over this new circuit came the greetings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containing instructions for the resident Life Carriers forbidding us to interfere with the pattern of life we had established. We were directed not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human progress. It should not be inferred that Life Carriers ever arbitrarily and mechanically interfere with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planetary evolutionary plans, for we do not. But up to this time we had been permitted to manipulate the environment and shield the life plasm in a special manner, and it was this extraordinary, but wholly natural, supervision that was to be discontinued.

62.7.5 (710.4) And no sooner had the Most Highs left off speaking than the beautiful message of Lucifer, then sovereign of the Satania system, began to planetize. Now the Life Carriers heard the welcome words of their own chief and received his permission to return to Jerusem. This message from Lucifer contained the official acceptance of the Life Carriers' work on Urantia and absolved us from all future criticism of any of our efforts to improve the life patterns of Nebadon as established in the Satania system.

62.7.6 (710.5) These messages from Salvington, Edentia, and Jerusem formally marked the termination of the Life Carriers' agelong supervision of the planet. For ages we had been on duty, assisted only by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nd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now, will, the power of choosing to worship and to ascend, having appeared in the evolutionary creatures of the planet, we realized that our work was finished, and our group prepared to depart. Urantia being a life-modification world, permission was granted to leave behind two senior Life Carriers with twelve assistants, and I was chosen as one of this group and have ever since been on Urantia.

62.7.7 (710.6) It is just 993,408 years ago (from the year A.D. 1934) that Urantia was formally recognized as a planet of human habita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Biologic evolution had once again achieved the human levels of will dignity;

성에 사람이 도착한 것이다.

man had arrived on planet 606 of Satania.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
에 의해서 후원되었음]

^{62:7.8 (710.7)} [Sponsor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resident on Urantia.]

제 63 편 최초의 인간 가족

⇨ 062

유랜시아 책

06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3 편 최초의 인간 가족

섹션

소개

제 1 장. 안돈과 폰타

제 2 장. 쌍둥이의 도피

제 3 장. 안돈의 가족

제 4 장. 안돈의 씨족들

제 5 장. 안돈-사람들의 분산

제 6 장. 오나가—최초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제 7 장. 안돈과 폰타의 생존

PAPER 63

THE FIRST HUMAN FAMILY

SECTIONS

Introduction

1. Andon and Fonta

2. The Flight of the Twins

3. Andon's Family

4. The Andonic Clans

5. Dispersion of the Andonites

6. Onagar — The First Truth Teacher

7. The Survival of Andon and Fonta

소개

유랜시아는 최초의 두 인간들—쌍둥이—이 11 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 인간존재의 두 번째 세대인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거주민이 사는 세계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이 행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구원자별로부터 천사장이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사람-마음이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나타났고, 새로운 종족의 부모들은 이름이 안돈과 폰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사장들은, 이들 창조체에게 우주 아버지의 영의 선물의 개인적 내주함이 속히 자질로서 부여되기를 바라고 있다.”

안돈이라는 이름은 “인간 완전성의 갈망을 나타내는 최초의 아버지다운 창조체”를 의미하는 네바돈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다. 폰타는 “인간 완전성의 갈망을 나타내는, 최초의 아들다운 창조체”를 의미한다. 안돈과 폰타는 자기들에게 이러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들과 융합될 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필사자로서 유랜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서로 부른 이름은 손타-안과 손타-엔이었는데, 손타-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

INTRODUCTION

63:0.1 (711.1) URANTIA was registered as an inhabited world when the first two human beings — the twins — were eleven years old, and before they had become the parents of the first-born of the second generation of actual human beings. And the archangel message from Salvington, on this occasion of formal planetary recognition, closed with these words:

63:0.2 (711.2) “Man-mind has appeared on 606 of Satania, and these parents of the new race shall be called *Andon* and *Fonta*. And all archangels pray that these creatures may speedily be endowed with the personal indwelling of the gift of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63:0.3 (711.3) Andon is the Nebadon name which signifies “the first Fatherlike creature to exhibit human perfection hunger.” Fonta signifies “the first Sonlike creature to exhibit human perfection hunger.” Andon and Fonta never knew these names until they were bestowed upon them at the time of fusion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Throughout their mortal sojourn on Urantia they called each other Sonta-an and Sonta-en, Sonta-an meaning “loved by mother,” Sonta-en signifying

고, 손타-엔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이름을 붙였으며, 그 의미들은 그들의 상호 존중심과 애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 1 장. 안돈과 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안돈과 폰타는 그 때까지 지구 위에 살았던 어떤 인간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난 쌍이었다. 모든 인류의 실제적인 조상이 된 이 훌륭한 쌍은, 그들의 직계 후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했으며, 그들의 직계 그리고 먼 친족 조상들 둘 모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최초의 인간 쌍의 부모는 비록 그들이 그들의 구성원들 중에서 보다 총명한 일원이었지만, 싸울 때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집단인 그들의 종족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날카로운 돌 바늘모양의 돌, 부싯돌 그리고 뼈를 이용하였다.

아직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안돈은 이미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몽둥이 끝에 붙들어 매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동물의 힘줄을 이용하였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와 마찬가지로 모험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그가 탐험 여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그를 따라다녔던 그의 자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12번 이상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였다.

영장목 종족들로부터 도망치기로 한 안돈과 폰타의 결심은, 유인원 종족의 열등한 친족들과 짝을 짓는 수많은 그들의 후손들을 특징짓는 더 낮은 지능보다 훨씬 높은 마음의 본질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보다는 어느 정도 뛰어난 존재에 대한 그들의 막연한 느낌은 개인성의 소유에 기인하였으며 그리고 생각 조절자가 내주(內住)하는 현존으로 증강되었다.

제 2 장. 쌍둥이의 도피

안돈과 폰타는 북쪽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한 후에, 한동안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였는데, 특별히 자신들의 아버지와 직계 가족들을 화나게 만들 것을 염려하였다.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친척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를 상상해보고, 이미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부족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아이들로서, 쌍둥이는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늘 같이 보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영장목 종족의 그들의 동물 사촌들과 과도하게 친숙해본 적이 없었다. 또한 별도의 매우 우월한 나무 집을 지은 것으로서 종족 안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개선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loved by father.” They gave themselves these names, and the meanings are significant of their mutual regard and affection.

1. ANDON AND FONTA

63:1.1 (711.4) In many respects, Andon and Fonta were the most remarkable pair of human beings that have ever lived on the face of the earth. This wonderful pair, the actual parents of all mankind, were in every way superior to many of their immediate descendants, and they were radically different from all of their ancestors, both immediate and remote.

63:1.2 (711.5) The parents of this first human couple were apparently little different from the average of their tribe, though they were among its more intelligent members, that group which first learned to throw stones and to use clubs in fighting. They also made use of sharp spicules of stone, flint, and bone.

63:1.3 (711.6) While still living with his parents, Andon had fastened a sharp piece of flint on the end of a club, using animal tendons for this purpose, and on no less than a dozen occasions he made good use of such a weapon in saving both his own life and that of his equally adventurous and inquisitive sister, who unfailingly accompanied him on all of his tours of exploration.

63:1.4 (711.7) The decision of Andon and Fonta to flee from the Primates tribes implies a quality of mind far above the baser intelligence which characterized so many of their later descendants who stooped to mate with their retarded cousins of the simian tribes. But their vague feeling of being something more than mere animals was due to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and was augmented by the indwelling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2. THE FLIGHT OF THE TWINS

63:2.1 (712.1) After Andon and Fonta had decided to flee northward, they succumbed to their fears for a time, especially the fear of displeasing their father and immediate family. They envisaged being set upon by hostile relatives and thus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meeting death at the hands of their already jealous tribesmen. As youngsters, the twins had spent most of their time in each other's company and for this reason had never been overly popular with their animal cousins of the Primates tribe. Nor had they improved their standing in the tribe by building a separate, and a very superior, tree home.

나무 꼭대기에 새로 지은 바로 이 집에서, 맹렬한 태풍 때문에 그들이 잠에서 깬 어느 날 밤, 그리고 그들이 공포와 사랑의 포옹으로 껴안으면서, 그들은 부족의 거주지와 나무 꼭대기 집에서 도망치기로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충분히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들은 북쪽으로 만나질 여행할 거리에 있는 곳에 거친 나무 꼭대기의 대피소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으며, 집이 있는 숲으로부터 도망친 첫 날 동안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영장목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쌍둥이들도 밤중에 땅 위에 머무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워지기 직전에 북쪽을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 비록 보름달이 비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한밤중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비상한 용기를 요하는 것이었고 한편, 그들은 그들의 부족들과 친척들이 추격하더라도 오히려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미리 예정한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그들은 노출된 부싯돌 퇴적층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용도에 알맞은 모양의 돌들을 많이 찾았으며, 앞으로 긴히 사용하기 위해 수집해 두었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보다 적당한 모양이 되도록 이 부싯돌들을 다듬다가, 안돈은 그것들로부터 불꽃이 튀는 본질특성을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불을 피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기후가 온화하였기 때문에 불이 별로 필요치 않았던 그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

그렇지만 가을의 태양은 점점 낮아지고, 그들이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밤이 더욱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짐으로부터 떠난 지 한 달이 채 안되었을 때, 안돈은 부싯돌로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자기 짝에게 내비쳤다. 그들은 부싯돌의 불꽃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려고 두 달 동안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들은 매일 같이 부싯돌을 마찰시켰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애썼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의 어느 날 저녁, 폰타가 근처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버려져 있는 새둥지를 찾아냈을 때, 불을 붙이는 그 기법의 비밀이 풀리는 실마리가 발생되었다. 그 동우리는 건조한 상태였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으며, 그 위에 불꽃을 계속 튀긴 결과 어느 순간 충분히 불이 붙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그 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지만, 적당한 땀감을 더 공급하여 불이 계속 불도록 하였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처음으로 땀감을 수집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짧지만 사건 많은 삶에서 가장 기쁜 순간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자기들이 피워 놓은 불을 바라보며 앉아있었으며 그들이 기후에 도전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남쪽 땅에 있는 자기들의 동물 친척들로부터 언제까지나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발견을 이룩하였음을 어렵잖이 깨닫게 되었다. 삼 일간의 휴

63:2.2 (712.2) And it was in this new home among the treetops, one night after they had been awakened by a violent storm, and as they held each other in fearful and fond embrace, that they finally and fully made up their minds to flee from the tribal habitat and the home treetops.

63:2.3 (712.3) They had already prepared a crude treetop retreat some half-day's journey to the north. This was their secret and safe hiding place for the first day away from the home forests. Notwithstanding that the twins shared the Primates' deathly fear of being on the ground at nighttime, they sallied forth shortly before nightfall on their northern trek. While it required unusual courage for them to undertake this night journey, even with a full moon, they correctly concluded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be missed and pursued by their tribesmen and relatives. And they safely made their previously prepared rendezvous shortly after midnight.

63:2.4 (712.4) On their northward journey they discovered an exposed flint deposit and, finding many stones suitably shaped for various uses, gathered up a supply for the future. In attempting to chip these flints so that they would be better adapted for certain purposes, Andon discovered their sparking quality and conceived the idea of building fire. But the notion did not take firm hold of him at the time as the climate was still salubrious and there was little need of fire.

63:2.5 (712.5) But the autumn sun was getting lower in the sky, and as they journeyed northward, the nights grew cooler and cooler. Already they had been forced to make use of animal skins for warmth. Before they had been away from home one moon, Andon signified to his mate that he thought he could make fire with the flint. They tried for two months to utilize the flint spark for kindling a fire but only met with failure. Each day this couple would strike the flints and endeavor to ignite the wood. Finally, one evening about the time of the setting of the sun, the secret of the technique was unraveled when it occurred to Fonta to climb a near-by tree to secure an abandoned bird's nest. The nest was dry and highly inflammable and consequently flared right up into a full blaze the moment the spark fell upon it. They were so surprised and startled at their success that they almost lost the fire, but they saved it by the addition of suitable fuel, and then began the first search for firewood by the parents of all mankind.

63:2.6 (712.6) This was one of the most joyous moments in their short but eventful lives. All night long they sat up watching their fire burn, vaguely realizing that they had made a discovery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defy climate and thus forever to be independent of their animal relatives of the southern lands. After three days'

식과 불을 즐긴 후에,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다.

안돈의 선조인 영장목들도, 번갯불에 의해 불은 불을 종종 간수하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 땅에 살았던 어떤 창조체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불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가 새둥지와 마찬가지로 마른 이끼와 다른 물질들도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을 익히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제 3 장. 안돈의 가족

쌍둥이가 밤에 집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손타드라고 불렀는데; 손타드는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창조체들 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에 싸여진 최초의 존재였다. 인간 종족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진화와 함께, 보다 순수한 동물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지적 계층의 마음이 점진적 발전을 특징짓는 점점 더 연약하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알맞게 돌볼 수 있는 본능이 나타났다.

안돈과 폰타는 모두 19명의 자녀를 가졌으며, 거의 50여명에 이르는 손자들과 6명의 증손들의 관계적-연합을 즐기기까지 살았다. 그 가족들은 서로 붙어 있는 바위 집들, 또는 동굴 비슷한 곳에 살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세 개는 안돈의 자녀들이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암에 동굴 모양의 통로를 만들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안돈-사람들은 분명한 씨족의 영을 나타냈으며; 집단을 지어서 사냥하였고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립되어 있고 독특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긴밀한 친족관계로서의 감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조 영들에 의한 증진된 마음 사명활동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안돈과 폰타는 가족들을 양육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다. 그들은 42살까지 살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짐으로써 둘 모두 죽게 되었다. 5명과 자녀들과 11명의 손자들이 그들과 함께 죽었으며, 거의 20명의 자손들도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부모를 잃게 된 손타드는,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부족을 지도하였으며 제일 나이가 많은 여동생인 자기 부인의 훌륭한 내조를 받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돌을 굴려서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의 시신을 잘 매장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매장 행동에, 부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은, 그들에게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였으며, 주로 그들의 환상적

rest and enjoyment of the fire, they journeyed on.

^{63:2.7 (712.7)} The Primates ancestors of Andon had often replenished fire which had been kindled by lightning, but never before had the creatures of earth possessed a method of starting fire at will. But it was a long time before the twins learned that dry moss and other materials would kindle fire just as well as birds' nests.

3. ANDON'S FAMILY

^{63:3.1 (713.1)} It was almost two years from the night of the twins' departure from home before their first child was born. They named him Sontad; and Sontad was the first creature to be born on Urantia who was wrapped in protective coverings at the time of birth. The human race had begun, and with this new evolution there appeared the instinct properly to care for the increasingly enfeebled infants which would characteriz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mind of the intellectual order as contrasted with the more purely animal type.

^{63:3.2 (713.2)} Andon and Fonta had nineteen children in all, and they lived to enjoy the association of almost half a hundred grandchildren and half a dozen great-grandchildren. The family was domiciled in four adjoining rock shelters, or semicaves, three of which were interconnected by hallways which had been excavated in the soft limestone with flint tools devised by Andon's children.

^{63:3.3 (713.3)} These early Andonites evinced a very marked clannish spirit; they hunted in groups and never strayed very far from the homesite. They seemed to realize that they were an isolated and unique group of living beings and should therefore avoid becoming separated. This feeling of intimate kinship was undoubtedly due to the enhanced mind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63:3.4 (713.4)} Andon and Fonta labored incessantly for the nurture and uplift of the clan. They lived to the age of forty-two, when both were killed at the time of an earthquake by the falling of an overhanging rock. Five of their children and eleven grandchildren perished with them, and almost a score of their descendants suffered serious injuries.

^{63:3.5 (713.5)} Upon the death of his parents, Sontad, despite a seriously injured foot, immediately assumed the leadership of the clan and was ably assisted by his wife, his eldest sister. Their first task was to roll up stones to effectively entomb their dead parents, brothers, sisters, and children. Undue significance should not attach to this act of burial. Their ideas of survival after death were very vague and indefinite, being largely derived from

이고 다채로운 꿈속의 생활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번째 세대가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같이 살았으며, 그 후부터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경쟁과 사회적인 마찰이 병합되어 가면서, 이에 따라 분산이 시작되게 되었다.

제 4 장. 안돈의 씨족들

원시인—안돈-사람들—은 검은 눈과, 노란 색과 붉은 색 사이의 혼합인 가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들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색소이다. 그것이 안돈의-피부 색소이다. 일반적인 용모와 피부색에서, 이러한 초기 안돈-사람들은 지금-현재 살고 있는 어떤 인종 유형들보다도 에스키모인과 닮았었다. 그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하여 동물 가죽을 사용한 최초의 창조체이었다; 그들은 지금-현재의 인간들보다 몸에 약간 털이 더 많았다.

이 초기 사람들의 동물조상들의 부족 생활은 여러 사회적인 집회들의 시작을 예시하였으며, 이 존재들의 감정이 확대되고 두뇌 힘이 증강되면서, 즉시 사회구조가 발달되었고 씨족 노동의 새로운 분할이 발달되었다. 그들은 흥내를 매우 잘 내었지만, 놀이 본능은 거의 발달되지 못하였고, 유머 감각은 전혀 없었다. 원시인들은 때때로 미소를 짓기는 하였지만, 쾌활하게 웃는 법이 없었다. 유머는 아담의-종족의 후대 유산이었다. 이 초기 인간들은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화된 필사자들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불쾌한 환경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 일이 폰타와 그의 직계 자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나 괴로운 체험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이로운 종족이었다. 남성들은 자기들의 배우자들과 자손들의 안전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여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애국정신은 전적으로 직계 씨족에 국한되었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 매우 충실하였다; 자기 자녀들의 방어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기 손자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관념은 전혀 가질 능력이 없었다. 종교의 탄생에서 필요한 모든 감정이 유란시아의 이들 원주민들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마음은 인간 가슴속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초기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에 대하여 감동적인 애정을 갖고 있었고, 투박하기는 하지만 실제 우정의 관념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이 원시 민족들이 열등한 종족들과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손으로는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처를 입은 동료 전사(戰士)들을 보호하

their fantastic and variegated dream life.

63:3.6 (713.6) This family of Andon and Fonta held together until the twentieth generation, when combined food competition and social friction brought about the beginning of dispersion.

4. THE ANDONIC CLANS

63:4.1 (713.7) Primitive man — the Andonites — had black eyes and a swarthy complexion, something of a cross between yellow and red. Melanin is a coloring substance which is found in the skins of all human beings. It is the original Andonic skin pigment. In general appearance and skin color these early Andonites more nearly resembled the present-day Eskimo than any other type of living human beings. They were the first creatures to use the skins of animals as a protection against cold; they had little more hair on their bodies than present-day humans.

63:4.2 (713.8) The tribal life of the animal ancestors of these early men had foreshadowed the beginnings of numerous social conventions, and with the expanding emotions and augmented brain powers of these beings, there was an immediate development in social organization and a new division of clan labor. They were exceedingly imitative, but the play instinct was only slightly developed, and the sense of humor was almost entirely absent. Primitive man smiled occasionally, but he never indulged in hearty laughter. Humor was the legacy of the later Adamic race. These early human beings were not so sensitive to pain nor so reactive to unpleasant situations as were many of the later evolving mortals. Childbirth was not a painful or distressing ordeal to Fonta and her immediate progeny.

63:4.3 (714.1) They were a wonderful tribe. The males would fight heroically for the safety of their mates and their offspring; the females were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ir children. But their patriotism was wholly limited to the immediate clan. They were very loyal to their families; they would die without question in defense of their children, but they were not able to grasp the idea of try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their grandchildren. Altruism was as yet unborn in the human heart, notwithstanding that all of the emotions essential to the birth of religion were already present in these Urantia aborigines.

63:4.4 (714.2) These early men possessed a touching affection for their comrades and certainly had a real, although crude, idea of friendship. It was a common sight in later times, during their constantly recurring battles with the inferior tribes, to see one of these primitive men valiantly fighting with one hand while he struggled on, trying to

기 위하여 격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진화되어 발전된, 가장 뛰어나고 높은 인간적 특색들 대부분은 이러한 원시적 민족들에게서 감동적으로 예견되었다.

기원적인 안돈의-씨족은 27번째 세대가 이를 때까지 영도자관계가 잘 유지되었었는데, 손타드의 직계 후손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씨족의 통치자가 될 만한 두 사람이 최극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었다.

안돈의-씨족들이 널리 흩어지기 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으로 잘 발달된 언어가 진화되었다. 이 언어는 계속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새로운 발명들과 환경의 적응들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말들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 말은 후대에 여러 색깔의 종족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유란시아의 말, 초기 인간 가족의 언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돈의-씨족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났으며, 퍼져가는 가족들의 접촉이 마찰과 오해를 일으켰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사냥을 하는 일과, 이웃 종족들의 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당하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가정되는 불공정한 행위와 무례함에 대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싸우는 일이었다.

가족들 간의 불화가 증대되었고, 종족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보다 유능하고 진보된 집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심각할 정도로 목숨을 잃어갔다. 이 손실들 중에 어떤 것들은 수정될 수 없었다; 능력과 지능의 가장 가치 있는 특성들의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갔다. 초기의 이 종족과 그들의 원시 문명은 씨족들 간의 이러한 끊임없는 전쟁들로 인하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한 원시적 존재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동물들의 후손이며, 가깝게 연관되었을 때 미개한 민족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한다. 생명운반자들은 진화적인 창조체들 속에 있는 이러한 경향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발전하는 인간존재들을 결국에는 적어도 셋으로, 그리고 많게는 여섯 가지의 독특하고도 분리된 종족들로 나뉘도록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제 5 장. 안돈-사람들의 분산

초기의 안돈 종족들은 아시아 쪽으로 멀리 들어가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당시의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서서히 확장되는 세 번째 빙하에 의해서 길이 막힐 때까지 북쪽으로 점

protect and save an injured fellow warrior. Many of the most noble and highly human traits of subsequent evolutionary development were touchingly foreshadowed in these primitive peoples.

63:4.5 (714.3) The original Andonic clan maintained an unbroken line of leadership until the twenty-seventh generation, when, no male offspring appearing among Sontad's direct descendants, two rival would-be rulers of the clan fell to fighting for supremacy.

63:4.6 (714.4) Before the extensive dispersion of the Andonic clans a well-developed language had evolved from their early efforts to intercommunicate. This language continued to grow, and almost daily additions were made to it because of the new inventions and adaptations to environment which were developed by these active, restless, and curious people. And this language became the word of Urantia, the tongue of the early human family, until the later appearance of the colored races.

63:4.7 (714.5) As time passed, the Andonic clans grew in number, and the contact of the expanding families developed friction and misunderstandings. Only two things came to occupy the minds of these peoples: hunting to obtain food and fighting to avenge themselves against some real or supposed injustice or insult at the hands of the neighboring tribes.

63:4.8 (714.6) Family feuds increased, tribal wars broke out, and serious losses were sustained among the very best elements of the more able and advanced groups. Some of these losses were irreparable; some of the most valuable strains of ability and intelligence were forever lost to the world. This early race and its primitive civilization we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this incessant warfare of the clans.

63:4.9 (714.7) It is impossible to induce such primitive beings long to live together in peace. Man is the descendant of fighting animals, and when closely associated, uncultured people irritate and offend each other. The Life Carriers know this tendency among evolutionary creatures and accordingly make provision for the eventual separation of developing human beings into at least three, and more often six, distinct and separate races.

5. DISPERSION OF THE ANDONITES

63:5.1 (715.1) The early Andon races did not penetrate very far into Asia, and they did not at first enter Africa. The geography of those times pointed them north, and farther and farther north these people journeyed until they were hindered by the

점 더 멀리 이동하였다.

확장되는 이 얼음 덩어리가 프랑스와 영국 섬들에 이르기 전까지, 안돈과 폰타의 자손들은 유럽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당시에 따뜻한 물로 이루어져 있었던 북해로 나가는 거대한 강기슭을 따라서 천여 개 이상의 독립된 부락들을 이루었다.

이들 안돈의-종족들이 바로 초기에 프랑스의 강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솜므 강변을 따라 수만 년 동안 살았다. 솜므는 오늘날과 같이 그 때에도 바다로 흘러가는, 빙하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 지지 않았던 하나의 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돈의-후손들의 많은 증거물들이 왜 이 강변 계곡 방향을 따라서 발견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유란시아의 이 원주민들은, 위험이 닥치는 경우는 여전히 나무 꼭대기로 피신하기는 하였지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지붕처럼 생긴 절벽 밑의 은신처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잘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구릉지의 동굴 속에서 주로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기 때문에 심한 불편을 겪지 않고 그들의 불의 위안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뒤에 후대의 얼음 덩어리들이 더욱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자손들이 동굴 속에 거주하도록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동굴 거주자도 또한 아니었다. 그들은 숲이 있는 끝자락과 강이 흐르는 옆에서 야영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였다.

부분적으로 보호된 거주지의 위장에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놀랄 만큼 영특함을 보였으며, 그들은 돌로 된 잠자는 방들, 둥근 모양의 돌로 된 오두막을 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었고, 밤이 되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는데, 이 바위는 돌로 지붕을 마지막으로 덮기 전에 안쪽에 들여놓음으로써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돈-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노련한 사냥꾼들 이었으며, 야생 딸기들과 특정한 나무들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기를 먹었다. 안돈이 돌도끼를 발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던지는 창과 작살을 효력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마침내 도구-창조의 마음은 용구-사용의 손과 더불어 기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이 인간들은 부식돌로 된 도구들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게 되었다. 마치 지금-현재의 사람들이 금과 백금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하여 세계 구석구석까지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식돌을 찾기 위하여 더 멀리까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여행하였다.

그리고 이 안돈 종족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능을 현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퇴화하는 후손들이 불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반복하여 다시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년 동안에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slowly advancing ice of the third glacier.

63:5.2 (715.2) Before this extensive ice sheet reached France and the British Isles, the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had pushed on westward over Europe and had established more than one thousand separate settlements along the great rivers leading to the then warm waters of the North Sea.

63:5.3 (715.3) These Andonic tribes were the early river dwellers of France; they lived along the river Somme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The Somme is the one river unchanged by the glaciers, running down to the sea in those days much as it does today. And that explains why so much evidence of the Andonic descendants is found along the course of this river valley.

63:5.4 (715.4) These aborigines of Urantia were not tree dwellers, though in emergencies they still betook themselves to the treetops. They regularly dwelt under the shelter of overhanging cliffs along the rivers and in hillside grottoes which afforded a good view of the approaches and sheltered them from the elements. They could thus enjoy the comfort of their fires without being too much inconvenienced by the smoke. They were not really cave dwellers either, though in subsequent times the later ice sheets came farther south and drove their descendants to the caves. They preferred to camp near the edge of a forest and beside a stream.

63:5.5 (715.5) They very early became remarkably clever in disguising their partially sheltered abodes and showed great skill in constructing stone sleeping chambers, dome-shaped stone huts, into which they crawled at night. The entrance to such a hut was closed by rolling a stone in front of it, a large stone which had been placed inside for this purpose before the roof stones were finally put in place.

63:5.6 (715.6) The Andonites were fearless and successful hunters and, with the exception of wild berries and certain fruits of the trees, lived exclusively on flesh. As Andon had invented the stone ax, so his descendants early discovered and made effective use of the throwing stick and the harpoon. At last a tool-creating mind was functioning in conjunction with an implement-using hand, and these early humans became highly skillful in the fashioning of flint tools. They traveled far and wide in search of flint, much as present-day humans journey to the ends of the earth in quest of gold, platinum, and diamonds.

63:5.7 (715.7) And in many other ways these Andon tribes manifested a degree of intelligence which their retrogressing descendants did not attain in half a million years, though they did again and again rediscover various methods of kindling fire.

제 6 장. 오나가—최초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안돈의-종족의 분산이 확장되며, 씨족들의 문화적 그리고 영적 지위는 오나가의 시대까지 거의 만 년 동안 퇴보하였으며, 그는 이 종족들의 영도자관계가 되었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으며, 처음으로 그들 모두를 “사람과 동물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분”께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였다.

안돈의 철학은 매우 혼동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불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불의 숭배자가 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이성인 그를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부터, 열과 빛의 보다 장엄하고 우월한 근원인 태양으로 인도하였지만, 태양은 너무 멀리 있었으므로 태양 숭배자가 되지는 못하였다.

안돈-사람들은 일찍부터 자연력들—천둥, 번개, 비, 눈, 우박, 얼음—에 대한 경외심을 키워갔다. 그러나 이 초기시대에는 굶주림이 계속 반복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였고, 그들은 주로 동물을 음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물숭배를 발전시켰다. 안돈에게는, 더 큰 양식이 되는 동물들은 창조적인 능력과 몸을 보호하는 힘에 대한 상징들이었다. 때로는, 이러한 더 커다란 동물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특정한 동물이 경배의 대상으로 성행하는 동안, 그 동물의 서투른 윤곽이 동굴 벽에 그려지곤 했고, 후대에는 기술이 점차 발전되어, 그러한 동물 하느님이 여러 가지의 장신구들 위에 새겨지게 되었다.

안돈의-후예들은 매우 일찍부터, 부족이 숭배하는 동물의 고기를 삼가는 관습을 형성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젊은 아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감동을 주기 위하여, 숭배하고 있는 이 동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여 잡고, 존경의 예식을 진화시켰다; 아주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원시적인 의식 행위는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후손들이 더욱 공을 들이는 희생 의식으로 발전시켰다. 리고 이것이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남은 희생제물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관념은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의 종교 예식 속에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피를 흘림”으로 대속하는 교리로써 유지되게 되었다.

이들 원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온통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오나가가 단순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았다:

“오 생명의 숨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얼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숲 속에 있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 세상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오나가는 현재의 카스피 해가 위치한 지역의 고대 지중해 북쪽 해안선에 있는 오반이라고 불리

6. ONAGAR — THE FIRST TRUTH TEACHER

63:6.1 (715.8) As the Andonic dispersion extended, the cultu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e clans retrogressed for nearly ten thousand years until the days of Onagar, who assumed the leadership of these tribes, brought peace among them, and for the first time, led all of them in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to men and animals.”

63:6.2 (716.1) Andon's philosophy had been most confused; he had barely escaped becoming a fire worshiper because of the great comfort derived from his accidental discovery of fire. Reason, however, directed him from his own discovery to the sun as a superior and more awe-inspiring source of heat and light, but it was too remote, and so he failed to become a sun worshiper.

63:6.3 (716.2) The Andonites early developed a fear of the elements — thunder, lightning, rain, snow, hail, and ice. But hunger was the constantly recurring urge of these early days, and since they largely subsisted on animals, they eventually evolved a form of animal worship. To Andon, the larger food animals were symbols of creative might and sustaining power. From time to time it became the custom to designate various of these larger animals as objects of worship. During the vogue of a particular animal, crude outlines of it would be drawn on the walls of the caves, and later on, as continued progress was made in the arts, such an animal god was engraved on various ornaments.

63:6.4 (716.3) Very early the Andonic peoples formed the habit of refraining from eating the flesh of the animal of tribal veneration. Presently, in order more suitably to impress the minds of their youths, they evolved a ceremony of reverence which was carried out about the body of one of these venerated animals; and still later on, this primitive performance developed into the more elaborate sacrificial ceremonies of their descendants. And this is the origin of sacrifices as a part of worship. This idea was elaborated by Moses in the Hebrew ritual and was preserved, in principle, by the Apostle Paul as the doctrine of atonement for sin by “the shedding of blood.”

63:6.5 (716.4) That food was the all-important thing in the lives of these primitive human beings is shown by the prayer taught these simple folks by Onagar, their great teacher. And this prayer was:

63:6.6 (716.5) “O Breath of Life, give us this day our daily food, deliver us from the curse of the ice, save us from our forest enemies, and with mercy receive us into the Great Beyond.”

63:6.7 (716.6) Onagar maintained headquarters on the northern shores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는 촌락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땅으로부터 북쪽으로 나 있는 여행 통로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곳에 있는, 경유지였다. 그는 오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착지들로 선생들을 보내어, 하나의 신(神)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교리들과 그가 저 너머 위대한 것이라고 불렀던 내세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오나가가 보낸 이 사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던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고기를 익혀서 먹은 최초의 인간들이었고, 정기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막대기 끝에 달아서 그리고 달구어진 돌 판 위에서 고기를 요리하였다; 나중에는 불 속에서 큰 덩어리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날고기를 먹는 상태로 거의 전반적으로 되돌아왔다.

오나가는 983,323년 전에 (서기 1934년으로부터) 태어났으며, 69살까지 살았다. 이 주(主)마음의 성취들과 그리고 행성영주 시대-이전의 영적 영도자의 기록은, 이들 원시 민족들이 하나의 진정한 사회로 조직화되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이다. 그는 효과적인 부족 체제를 설립하였는데,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모습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그러한 높은 영적 문명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이룩되지 못하였다. 단순한 이 사람들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교를 가졌으나, 그들의 퇴화된 후손들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안돈과 폰타가 생각 조절자를 받았었고,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였지만, 오나가의 시대가 되어서야 많은 숫자의 조절자들과 수호 세라핌천사들이 유란시아에 내려오게 되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원시인들에게 황금기였다.

제 7 장. 안돈과 폰타의 생존

인간 종족의 훌륭한 설립자들 이었던 안돈과 폰타는, 유란시아에 행성영주가 도착하면서 판결이 내려질 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때가 이르자 예루셈의 시민자격을 받으면서 맨션세계들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비록 유란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기들이 설립한 그 종족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에 대해 슬퍼하였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비통해 하였지만, 자기들의 세계를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적인 증여를 위한 무대로 선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넘치도록 기쁨을 향유하였다.

안돈과 폰타는 둘 모두 예루셈에서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들과 융합되었으며, 손타드를 포함한 그들의 자손들 여러 명들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손은, 심지어는 그들의 직계들도, 단지 영 융합을 성취하였을 뿐이다.

in the region of the present Caspian Sea at a settlement called Oban, the tarrying place on the westward turning of the travel trail leading up northward from the Mesopotamian southland. From Oban he sent out teachers to the remote settlements to spread his new doctrines of one Deity and his concept of the hereafter, which he called the Great Beyond. These emissaries of Onagar were the world's first missionaries; they were also the first human beings to cook meat, the first regularly to use fire in the preparation of food. They cooked flesh on the ends of sticks and also on hot stones; later on they roasted large pieces in the fire, but their descendants almost entirely reverted to the use of raw flesh.

63:6.8 (716.7) Onagar was born 983,323 years ago (from A.D. 1934), and he lived to be sixty-nine years of age. The record of the achievements of this master mind and spiritual leader of the pre-Planetary Prince days is a thrilling recital of the organization of these primitive peoples into a real society. He instituted an efficient tribal government, the like of which was not attained by succeeding generations in many millenniums. Never again, until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was there such a high spiritual civilization on earth. These simple people had a real though primitive religion, but it was subsequently lost to their deteriorating descendants.

63:6.9 (717.1) Although both Andon and Fonta had received Thought Adjusters, as had many of their descendants, it was not until the days of Onagar that the Adjusters and guardian seraphim came in great numbers to Urantia. This was, indeed, the golden age of primitive man.

7. THE SURVIVAL OF ANDON AND FONTA

63:7.1 (717.2) Andon and Fonta, the splendid founders of the human race, received recognition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Urantia upon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nd in due time they emerged from the regime of the mansion worlds with citizenship status on Jerusem. Although they have never been permitted to return to Urantia, they are cognizant of the history of the race they founded. They grieved over the Caligastia betrayal, sorrowed because of the Adamic failure, but rejoiced exceedingly when announcement was received that Michael had selected their world as the theater for his final bestowal.

63:7.2 (717.3) On Jerusem both Andon and Fonta were fused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as also were several of their children, including Sontad, but the majority of even their immediate descendants only achieved Spirit fusion.

안돈과 폰타는, 예루셈에 도착한 직후에, 유란시아로부터 하늘나라 구체들로 들어오는 시간의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티아 개인성들을 돕기 위하여 첫 번째 맨션세계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체계 주권자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봉사에 무기한 배정되어 있다. 그들은 이 계시들과 관련하여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요청은 지혜롭게 거절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의 모든 역사들 중에서 가장 웅대하고 황홀한 장(章), 진화에 관한, 생명의 투쟁들에 관한, 죽음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부모의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63:7.3 (717.4) Andon and Fonta, shortly after their arrival on Jerusem,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System Sovereign to return to the first mansion world to serve with the morontia personalities who welcome the pilgrims of time from Urantia to the heavenly spheres. And they have been assigned indefinitely to this service. They sought to send greetings to Urantia in connection with these revelations, but this request was wisely denied them.

63:7.4 (717.5) And this is the recital of the most heroic and fascinating chapter in all the history of Urantia, the story of the evolution, life struggles, death, and eternal survival of the unique parents of all mankind.

63:7.5 (717.6) [Presented by a Life Carrier resident on Urantia.]

제 64 편 진화하는 유색 인종

⇨ 063

유랜시아 책

06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4 편 진화하는 유색 인종

섹션

소개

제 1 장. 안돈의 -원주민들

제 2 장. 폭스홀 민족

제 3 장. 바도난 부족들

제 4 장. 네안데르탈 종족들

제 5 장. 유색 인종들의 기원

제 6 장. 유랜시아의 여섯 산각 종족

제 7 장. 유색 인종들의 분산

PAPER 64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ndonic Aborigines

2. The Foxhall Peoples

3. The Badonan Tribes

4. The Neanderthal Races

5. Origin of the Colored Races

6.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7. Dispersion of the Colored Races

소개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만 년 전인, 안돈과 폰타의 시대로부터, 행성영주의 시대를 거쳐, 빙하기가 끝나는 때까지 유랜시아의 진화적 종족들에 대한 것이다.

인간 종족의 역사는 거의 100만 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유랜시아의 행성영주 시대 이전과 거의 일치한다. 인간 존재들에 관한 역사의 후반부는 행성영주의 도착과 여섯 가지 유색 종족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라고 간주되는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INTRODUCTION

64:0.1 (718.1) THIS is the story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from the days of Andon and Fonta, almost one million years ago, down through the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to the end of the ice age.

64:0.2 (718.2) The human race is almost one million years old, and the first half of its story roughly corresponds to the pre-Planetary Prince days of Urantia. The latter half of the history of mankind begins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appearance of the six colored races and roughly corresponds to the period commonly regarded as the Old Stone Age.

제 1 장. 안돈의 -원주민들

원시인은 백만 년 전보다 약간 후에 진화되어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며, 격렬한 체험을 가졌다. 그는 열등한 유인원 종족들과 섞이는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바다 위로 20,000피트 이상 융기되어 있는 건조한 티베트 고원 지역 때문에 동쪽으로 이주할

1. THE ANDONIC ABORIGINES

64:1.1 (718.3) Primitive man made his evolutionary appearance on earth a little less than one million years ago, and he had a vigorous experience. He instinctively sought to escape the danger of mingling with the inferior simian tribes. But he could not migrate eastward because of the arid

수 없었다; 지중해가 확대되어 있었으므로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는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북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는 확대되는 얼음 덩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얼음 덩어리 때문에 더 북쪽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흩어지는 종족들이 점점 더 호전성을 띄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능이 발달된 그 집단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털이 많고 나무 위에서 사는 열등한 지능의 친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사람의 초기 종교 감정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지형적 상황에 있는 폐쇄된 환경—오른 쪽으로는 산이, 왼쪽으로는 물이, 그리고 앞으로는 얼음이 가로막고 있는 환경—속에서 느끼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진보해 가는 안돈-사람들은 남쪽에서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들의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안돈-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친척들의 성향과는 반대로 숲을 피하였다. 숲 속에 거주할 때에는 인간이 퇴보하였고; 인간 진화는 오로지 개방되어 있는 고지대에서만 이루어졌다. 날씨가 춥고 음식이 풍부하지 못한 개활지는 행동하고 발명하며 비상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충동을 주었다. 이들 안돈의-종족들이 바위투성이의 북쪽 지대에서 고난과 궁핍을 겪는 동안 현재 인간 종족들의 선구자들로 발전되어갔던 반면에, 그들의 퇴보하는 사촌들은 초기에 공통적으로 기원되었던 땅에 있는 남부 열대림 속에서 사치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 3 빙하기, 지질학자들이 제 1 빙하기라고 알고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 그전에 있었던 두번의 빙하 지대는 북유럽까지 확장되지 못했었다.

대부분의 빙하기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나중에는 아프리카가 시실리 육교에 의해 유럽에 붙어 있었다. 안돈의-종족들이 이주하던 시기에, 서쪽으로는 잉글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동쪽으로는 자바에 이르는 곳까지 육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시 분리되었고, 독특한 동물 군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달되었다.

95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이주하였다. 서쪽으로 향한 그들은 유럽을 지나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이르렀다. 보다 후대에 그들은 동쪽으로 진출하여, 그들의—소위 자바인 이라고 불리는—뼈가 아주 최근에 발견된 바 있는 자바 지역까지 이르렀으며, 그 후에 타스매니아로 여행하였다.

지능이 열등한 동족 동물들과 매우 자유롭게 섞여버린, 동쪽으로 이동한 집단들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집단들은 같은 선조로부터 기원된 퇴보된 종족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일이 비교적 적었다. 진보되지 못한 개별존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결국에는 열등한 종족들과 짝을 짓게 되었다.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출생된 혼혈아들이 다시 북

Tibetan land elevations, 30,000 feet above sea level; neither could he go south nor west because of the expanded Mediterranean Sea, which then extended eastward to the Indian Ocean; and as he went north, he encountered the advancing ice. But even when further migration was blocked by the ice, and though the dispersing tribes became increasingly hostile, the more intelligent groups never entertained the idea of going southward to live among their hairy tree-dwelling cousins of inferior intellect.

64:1.2 (718.4) Many of man's earliest religious emotions grew out of his feeling of helplessness in the shut-in environment of this geographic situation — mountains to the right, water to the left, and ice in front. But these progressive Andonites would not turn back to their inferior tree-dwelling relatives in the south.

64:1.3 (718.5) These Andonites avoided the forests in contrast with the habits of their nonhuman relatives. In the forests man has always deteriorated; human evolution has made progress only in the open and in the higher latitudes. The cold and hunger of the open lands stimulate action, invention, and resourcefulness. While these Andonic tribes were developing the pioneers of the present human race amidst the hardships and privations of these rugged northern climes, their backward cousins were luxuriating in the southern tropical forests of the land of their early common origin.

64:1.4 (718.6) These events occurred during the times of the third glacier, the first according to the reckoning of geologists. The first two glaciers were not extensive in northern Europe.

64:1.5 (718.7) During most of the ice age England was connected by land with France, while later on Africa was joined to Europe by the Sicilian land bridge. At the time of the Andonic migrations there was a continuous land path from England in the west on through Europe and Asia to Java in the east; but Australia was again isolated, which further accentuated the development of its own peculiar fauna.

64:1.6 (719.1) 950,000 years ago the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had migrated far to the east and to the west. To the west they passed over Europe to France and England. In later times they penetrated eastward as far as Java, where their bones were so recently found — the so-called Java man — and then journeyed on to Tasmania.

64:1.7 (719.2) The groups going west became less contaminated with the backward stocks of mutual ancestral origin than those going east, who mingled so freely with their retarded animal cousins. These unprogressive individuals drifted southward and presently mated with the inferior tribes. Later on, increasing numbers of their

쪽으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안돈의-민족들과 짝을 지었고, 그러한 유감스러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월한 혈통들이 끊임없이 퇴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시 정착민들 중에서 호홉을 주신 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초기 시조(始祖) 문명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유란시아에 끊임없이 존재해 오고 있다. 장래가 매우 촉망되었던 문명이 연속적으로 오염되었고, 우월한 자들을 열등한 종족들과 결합하여 자손을 낳도록 자유롭게 허락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마침내는 소멸되고 말았다.

제 2 장. 폭스홀 민족

90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기술 그리고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 표면에서 계속 사라져갔으며; 문화와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부싯돌 사용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바로 이 때, 열등한 혼혈 집단의 많은 집단들이 프랑스 남쪽으로부터 잉글랜드에 도착하였다. 이 부족들은 숲에서 사는 꼬리 없는 원숭이 모양의 창조체와 너무 많이 섞여 있었으므로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없었지만, 미숙하나마 부싯돌을 다룰 수 있었고,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을 뒤따라서,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우월한 아이를 많이 낳는 민족이 발생하였고, 그들의 자손이 북쪽으로는 빙하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지중해 지역까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부족은 소위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었다.

문화가 퇴보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잉글랜드에서는 폭스홀 민족이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는 바도난 부족들이, 안돈의 전통들 일부와 오나가의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었다.

폭스홀 민족은 가장 서쪽에 살았고 안돈의-문화 대부분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부싯돌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을 보존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에스키모인의 고대 선조들인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였다.

폭스홀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안돈-사람들은 실제로 그 지역들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 당시에는 연결 육지가 여전히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이어주고 있었다; 안돈 후예들의 초기 정착지들 대부분이 고대의 강변과 해안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잉글랜드해협과 북해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중에서 서너 개 정도는 잉글랜드 해안선 부근에서 물위에 남아있다.

폭스홀 민족 중에서 보다 지능적이고 영적인

mongrel descendants returned to the north to mate with the rapidly expanding Andonic peoples, and such unfortunate unions unfailingly deteriorated the superior stock. Fewer and fewer of the primitive settlements maintained the worship of the Breath Giver. This early dawn civilization was threatened with extinction.

64:1.8 (719.3) And thus it has ever been on Urantia. Civilizations of great promise have successively deteriorated and have finally been extinguished by the folly of allowing the superior freely to procreate with the inferior.

2. THE FOXHALL PEOPLES

64:2.1 (719.4) 900,000 years ago the arts of Andon and Fonta and the culture of Onagar were vanishing from the face of the earth; culture, religion, and even flintworking were at their lowest ebb.

64:2.2 (719.5) These were the times when large numbers of inferior mongrel groups were arriving in England from southern France. These tribes were so largely mixed with the forest apelike creatures that they were scarcely human. They had no religion but were crude flintworkers and possessed sufficient intelligence to kindle fire.

64:2.3 (719.6) They were followed in Europe by a somewhat superior and prolific people, whose descendants soon spread over the entire continent from the ice in the north to the Alps and Mediterranean in the south. These tribes are the so-called *Heidelberg race*.

64:2.4 (719.7) During this long period of cultural decadence the Foxhall peoples of England and the Badonan tribes northwest of India continued to hold on to some of the traditions of Andon and certain remnants of the culture of Onagar.

64:2.5 (719.8) The Foxhall peoples were farthest west and succeeded in retaining much of the Andonic culture; they also preserved their knowledge of flintworking, which they transmitted to their descendants, the ancient ancestors of the Eskimos.

64:2.6 (719.9) Though the remains of the Foxhall peoples were the last to be discovered in England, these Andonites were really the first human beings to live in those regions. At that time the land bridge still connected France with England; and since most of the early settlements of the Andon descendants were located along the rivers and seashores of that early day, they are now under the waters of the English Channel and the North Sea, but some three or four are still above water on the English coast.

64:2.7 (720.1) Many of the more intelligent and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유지하였고 원시 종교 관습들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민족은 후대의 종족들과 섞이면서, 후기 빙하 침투가 있는 뒤에 잉글랜드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지금-현재 에스키모인 으로 살아남아 있다.

제 3 장. 바도난 부족들

서쪽에 있는 폭스홀 민족을 제외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다른 문화적 중심지가 동쪽에 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먼 후손인 바도난의 부족들 중에서 인도의 북서쪽 고원에 있는 구릉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민족은 안돈의 후손들 중에서 인간 제물을 실천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사람들은 숲으로 둘러싸이고 하천들이 가로지르는 광대한 고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냥감들이 풍부하였다. 그들은 티베트 지역에 있는 자기 동족들과 비슷하게, 천연적인 암석 오두막집과 산 중턱에 있는 동굴들 그리고 반(半)지하 통로 속에서 살았다.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빙하를 점점 더 두려워하였던 반면에, 그들이 기원되었던 고향 땅 근처에 사는 부족들은 점점 더 물을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점차적으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이 몇 차례 융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종족들의 구전(口傳)들은 바다에 대한 위험성과 주기적인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하여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강물의 범람에 대한 체험과 함께, 안전한 주거용 장소를 찾기 위해 고지대로 올라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

바도난 민족의 동쪽, 북부 인도의 시워릭 언덕에서는 사람과 다양한 인간-이전(以前)족 집단들 사이의 과도기에 대하여 지구의 다른 곳보다도 더욱 근접하는 화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850,000년 전에, 우월한 바도난 부족들은 그들보다 열등하고 동물적인 이웃들에 대항하여 멸종시키려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1,0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던 대부분의 동물 집단들은 멸종되거나 남쪽 숲 속으로 도망쳤다. 열등한 종족들을 멸종시키는 이 전쟁은 그 시대에 높은 곳에 살던 종족들에게 약간의 향상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향상된 이 바도난-사람 혈통의 혼합된 후손들이 분명하게 새로운 민족—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제 4 장. 네안데르탈 종족들

네안데르탈인들은 아주 우수한 전사(戰士)들이었고, 먼 지역까지 여행하였다. 그들은 인도 북

spiritual of the Foxhall peoples maintained their racial superiority and perpetuated their primitive religious customs. And these people, as they were later admixed with subsequent stocks, journeyed on west from England after a later ice visitation and have survived as the present-day Eskimos.

3. THE BADONAN TRIBES

64:3.1 (720.2) Besides the Foxhall peoples in the west, another struggling center of culture persisted in the east. This group was located in the foothills of the northwestern Indian highlands among the tribes of Badonan, a great-great-grandson of Andon. These people were the only descendants of Andon who never practiced human sacrifice.

64:3.2 (720.3) These highland Badonites occupied an extensive plateau surrounded by forests, traversed by streams, and abounding in game. Like some of their cousins in Tibet, they lived in crude stone huts, hillside grottoes, and semiunderground passages.

64:3.3 (720.4) While the tribes of the north grew more and more to fear the ice, those living near the homeland of their origin became exceedingly fearful of the water. They observed the Mesopotamian peninsula gradually sinking into the ocean, and though it emerged several times, the traditions of these primitive races grew up around the dangers of the sea and the fear of periodic engulfment. And this fear, together with their experience with river floods, explains why they sought out the highlands as a safe place in which to live.

64:3.4 (720.5) To the east of the Badonan peoples, in the Siwalik Hills of northern India, may be found fossils that approach nearer to transition types between man and the various prehuman groups than any others on earth.

64:3.5 (720.6) 850,000 years ago the superior Badonan tribes began a warfare of extermination directed against their inferior and animalistic neighbors. In less than one thousand years most of the borderland animal groups of these regions had been either destroyed or driven back to the southern forests. This campaign for the extermination of inferiors brought about a slight improvement in the hill tribes of that age. And the mixed descendants of this improved Badonite stock appeared on the stage of action as an apparently new people — the *Neanderthal race*.

4. THE NEANDERTHAL RACES

64:4.1 (720.7) The Neanderthalers were excellent fighters, and they traveled extensively. They

서쪽의 고원 중심지로부터 퍼져나가서,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심지어는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진화된 유색 인종들이 이주하는 시기까지, 거의 500,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였다.

800,000년 전에, 사냥감들이 풍부하게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슴과 코끼리와 하마들이 유럽에 우글거렸다. 소들이 매우 많이 있었고; 말과 이리들은 없는 곳이 없었다. 네안테르탈인들은 사냥을 매우 잘하였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우수한 사냥꾼들에게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실천 관행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 네안테르탈인들에게 순록은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는데, 그들은 그 동물의 뿔과 뼈들을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음식과 옷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하였다. 그들에게는 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부싯돌을 다루는 솜씨는 안돈시대의 차원에 거의 필적할 만큼 크게 향상되었다. 나무 손잡이에 매단 큰 부싯돌이 다시 사용되었고 도끼와 곡괭이 역할을 하였다.

750,000년 전에, 네 번째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왔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발달되면서, 네안테르탈인들은 북쪽에 있는 강을 덮은 얼음에 구멍을 내었고 이 구멍으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창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 부족들은 확장되는 빙하를 따라 후퇴하였고, 이 무렵에는 유럽에서 가장 멀리까지 침투해 있었다.

이 시대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까지 내려왔고 초기 사람들을 남쪽으로 몰아냈으며, 그의 기원이었던 지역 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인간 종족들은 매우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이지 못한 유인원 친척들과 더 이상 혼합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700,000년 전에, 유럽 지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었던 제 4차 빙하가 퇴각하고 있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후는 추웠고 습도가 높았으며, 원시인들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에서 다시 번성하였다. 가장 최근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북쪽 대륙이 점차적으로 숲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포유류 생명은 대빙하기에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 동물들은 빙하 지대와 알프스 사이에 있는 띠 모양의 좁은 지역에서 버티었고, 빙하가 물러가면서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칠리아 연결-육지를 통하여 곧고 바른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들,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였고, 새로운 이 동물들은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들과 하마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전멸시켰다.

650,000년 전에,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현상이 있었다. 빙하기들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기온이 매우 따뜻해져서 알프스 지역의 얼음과 눈이

gradually spread from the highland centers in northwest India to France on the west, China on the east, and even down into northern Africa. They dominated the world for almost half a million years until the times of the migr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64:4.2 (720.8) 800,000 years ago game was abundant; many species of deer, as well as elephants and hippopotamuses, roamed over Europe. Cattle were plentiful; horses and wolves were everywhere. The Neanderthals were great hunters, and the tribes in France were the first to adopt the practice of giving the most successful hunters the choice of women for wives.

64:4.3 (721.1) The reindeer was highly useful to these Neanderthal peoples, serving as food, clothing, and for tools, since they made various uses of the horns and bones. They had little culture, but they greatly improved the work in flint until it almost reached the levels of the days of Andon. Large flints attached to wooden handles came back into use and served as axes and picks.

64:4.4 (721.2) 750,000 years ago the fourth ice sheet was well on its way south. With their improved implements the Neanderthals made holes in the ice covering the northern rivers and thus were able to spear the fish which came up to these vents. Ever these tribes retreated before the advancing ice, which at this time made its most extensive invasion of Europe.

64:4.5 (721.3) In these times the Siberian glacier was making its southernmost march, compelling early man to move southward, back toward the lands of his origin. But the human species had so differentiated that the danger of further mingling with its nonprogressive simian relatives was greatly lessened.

64:4.6 (721.4) 700,000 years ago the fourth glacier, the greatest of all in Europe, was in recession; men and animals were returning north. The climate was cool and moist, and primitive man again thrived in Europe and western Asia. Gradually the forests spread north over land which had been so recently covered by the glacier.

64:4.7 (721.5) Mammalian life had been little changed by the great glacier. These animals persisted in that narrow belt of land lying between the ice and the Alps and, upon the retreat of the glacier, again rapidly spread out over all Europe. There arrived from Africa, over the Sicilian land bridge, straight-tusked elephants, broad-nosed rhinoceroses, hyenas, and African lions, and these new animals virtually exterminated the saber-toothed tigers and the hippopotamuses.

64:4.8 (721.6) 650,000 years ago witnessed the continuation of the mild climate. By the middle of the interglacial period it had become so warm that the Alps were almost denuded of ice and snow.

거의 사라졌다.

600,000년 전에, 빙하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퇴각(退却)하였고, 수천 년 동안 활동이 멈추어 있다가, 다섯 번째 확장이 다시 남쪽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50,000년 동안 기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유럽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에 있었던 기간의 약간 건조하였던 상태가 줄어들었고, 고산지대의 빙하들은 강물이 있는 계곡을 따라 멀리까지 내려왔다.

550,000년 전에, 확장되는 빙하는 사람과 동물들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람은,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크게 확장되어 있었던 흑해 지역과 빙하 지대 사이에 있는 지역, 그리고 북동쪽으로 뻗어 나가서 아시아까지 확대된 띠 모양의 넓은 지역에 풍부한 거주지(居住地)를 갖고 있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빙하기 동안, 네안테르탈 종족들의 미개한 문화는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란시아에서 지능이 높은 새롭고도 변형된 생명 유형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정말로 실패하는 듯이 보였다. 거의 250,000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냥과 싸움을 하였고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우월한 안돈의-조상들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퇴보하였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던 이 기간 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 문화는 가장 낮은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네안테르탈인들은 실제로 조잡스러운 미신 이상(以上)의 종교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구름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슬비와 안개 현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자연 현상의 기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원시적 종교가 점점 더 발전되었고, 반면에 동물을 경배하던 현상은 도구들이 발달되면서 점차 퇴보되었으며, 사냥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이 종족은 양식에 대한 염려 없이 살 수 있었고; 사냥에 대한 성(性)적 보상으로 인하여 수렵 기술이 크게 발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려움의 이 새로운 종교는 이들 자연 요소들 뒤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기세들을 달래려는 시도로 이끌었고, 나중에는 눈에 안 보이는 이들 미지(未知)의 물리적 기세들을 진정시키려고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간 희생제물의 이 끔찍한 실천 관행은, 유란시아의 좀 더 뒤떨어진 민족들에 의해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다.

초기의 이 네안테르탈인들은 거의 태양을 경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해질녘에 대한 필사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달이 어슴푸레 비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었지만, 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달빛이 다시 비치도록 유인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 남자와 여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표본을 잡아 희생제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태양이 규칙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달의 경우에는, 오로지 자기 부족에 속한 동료를 희생

64:4.9 (721.7) 600,000 years ago the ice had reached its then northernmost point of retreat and, after a pause of a few thousand years, started south again on its fifth excursion. But there was little modification of climate for fifty thousand years. Man and the animals of Europe were little changed. The slight aridity of the former period lessened, and the alpine glaciers descended far down the river valleys.

64:4.10 (721.8) 550,000 years ago the advancing glacier again pushed man and the animals south. But this time man had plenty of room in the wide belt of land stretching northeast into Asia and lying between the ice sheet and the then greatly expanded Black Sea extension of the Mediterranean.

64:4.11 (721.9) These times of the fourth and fifth glaciers witnessed the further spread of the crude culture of the Neanderthal races. But there was so little progress that it truly appeared as though the attempt to produce a new and modified type of intelligent life on Urantia was about to fail. For almost a quarter of a million years these primitive peoples drifted on, hunting and fighting, by spells improving in certain directions, but, on the whole, steadily retrogressing as compared with their superior Andonic ancestors.

64:4.12 (721.10) During these spiritually dark ages the culture of superstitious mankind reached its lowest levels. The Neanderthals really had no religion beyond a shameful superstition. They were deathly afraid of clouds, more especially of mists and fogs. A primitive religion of the fear of natural forces gradually developed, while animal worship declined as improvement in tools, with abundance of game, enabled these people to live with lessened anxiety about food; the sex rewards of the chase tended greatly to improve hunting skill. This new religion of fear led to attempts to placate the invisible forces behind these natural elements and culminated, later on, in the sacrificing of humans to appease these invisible and unknown physical forces. And this terrible practice of human sacrifice has been perpetuated by the more backward peoples of Urantia right on down to the twentieth century.

64:4.13 (722.1) These early Neanderthals could hardly be called sun worshipers. They rather lived in fear of the dark; they had a mortal dread of nightfall. As long as the moon shone a little, they managed to get along, but in the dark of the moon they grew panicky and began the sacrifice of their best specimens of manhood and womanhood in an effort to induce the moon again to shine. The sun, they early learned, would regularly return, but the moon they conjectured only returned because they sacrificed their fellow tribesmen. As the race

제물로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추측하였다. 그 종족이 진보되면서, 희생제물의 대상과 목적이 점차 바뀌게 되었지만, 종교 예식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advanced, the object and purpose of sacrifice progressively changed, but the offering of human sacrifice as a part of religious ceremonial long persisted.

제 5 장. 유색 인종들의 기원

500,000년 전에,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 사는 바도난 부족들은 또 하나의 극심한 인종적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격렬한 이 전쟁은 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맹위를 떨쳤으며, 긴 전쟁이 끝나쳐졌을 때에는, 오직 백여 가구들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고 있던 안돈과 폰타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바람직한 형태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때,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새롭고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던 고지대 중에서 북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게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게 되었다. 이들이 산긱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의 조상이었다.

이들 산긱 자녀들은 모두 19명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월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현시되었다. 19명의 이 아이들 중에는 적색이 5명, 오렌지색 2명, 황색 4명, 녹색 2명, 청색 4명, 그리고 남색이 2명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색깔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족들과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자손은 모두 산긱 부모의 피부색을 닮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멈추겠으며, 이 무렵에 행성영주가 도착되었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유란시아에 나타난 6가지의 산긱 종족들에 대해 따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 6 장. 유란시아의 여섯 산긱 종족

진화되는 보통 행성에서는 진화적인 6가지 종족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적색 인종이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나고, 그 다음 색깔의 종족들이 나타나기까지 여러 세대 동안 그 종족이 세상에 두루 퍼진다. 유란시아에서처럼 6가지 종족들이 동시에 그리고 한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가장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전에 유란시아에 나타났던 안돈-사람도 사타니아 체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이었다. 진화적인 유색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한 의지적인 창조체 종족이 나타나는 세계는 그 지역체계 속에 하나도 없었다.

5. ORIGIN OF THE COLORED RACES

64:5.1 (722.2) 500,000 years ago the Badonan tribes of the northwestern highlands of India became involved in another great racial struggl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this relentless warfare raged, and when the long fight was finished, only about one hundred families were left. But these survivors were the most intelligent and desirable of all the then living descendants of Andon and Fonta.

64:5.2 (722.3) And now, among these highland Badonites there was a new and strange occurrence. A man and woman living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then inhabited highland region began *suddenly* to produce a family of unusually intelligent children. This was the *Sangik family*, the ancestors of all of the six colored races of Urantia.

64:5.3 (722.4) These Sangik children, nineteen in number, were not only intelligent above their fellows, but their skins manifested a unique tendency to turn various colors upon exposure to sunlight. Among these nineteen children were five red, two orange, four yellow, two green, four blue, and two indigo. These colors became more pronounced as the children grew older, and when these youths later mated with their fellow tribesmen, all of their offspring tended toward the skin color of the Sangik parent.

64:5.4 (722.5) And now I interrupt the chronological narrative, after calling attention to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t about this time, while we separately consider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6. THE SIX SANGIK RACES OF URANTIA

64:6.1 (723.6) On an average evolutionary planet the six evolutionary races of color appear one by one; the red man is the first to evolve, and for ages he roams the world before the succeeding colored races make their appearance. The simultaneous emergence of all six races on Urantia, *and in one family*, was most unusual.

64:6.2 (723.1) The appearance of the earlier Andonites on Urantia was also something new in Satania. On no other world in the local system has such a race of will creatures evolved in advance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color.

1. 적색 종족. 이 민족은 인간 종족 중에서 비상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돈과 폰타에 비하여 우월하였다. 그들은 지능이 가장 발달된 집단이었으며, 산지 자녀들 중에서 부족적인 문명과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그들은 항상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유지하였고;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여러 번하는 결혼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종 형제들과 매우 심각한 장기간의 분쟁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을 발명하여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선조들의 습성 대부분을 이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스스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들은 황색 인종들에 의해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약 85,000년 전에, 그 적색 인종들 중에서 비교적 순수하게 남아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북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링 지역의 지협이 가라앉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고립되게 되었다. 아시아로 되돌아간 적색 인종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과 피가 섞인 다른 유색 인종들이 시베리아,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유럽 전역에 남아 있었다.

그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자기들의 초기 전통들과 가르침들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들의 직계 조상들은 행성영주가 있는 지구 본부의 후기 활동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 적색 인종들은 이 가르침들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고, 지적이고 영적인 문화의 큰 쇠퇴가 발생하였다. 이 민족은 곧 자기들끼리 너무도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였으므로, 종족 내부의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순수한 적색 인종 생존자들은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엄청난 쇠퇴로 인하여 적색 인종의 문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65,000년 전에, 오나모나론톤이 그들의 영도자 그리고 영적인 구원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아메리카 적색 인종들에게 일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위대한 영”에 대한 경배를 부활시켰다. 오나모나론톤은 96세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메리카 삼나무 숲 속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의 후대 후손들 대부분은 블랙푸트 인디언 속에서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모나론톤의 교훈들은 어렵פות한 전통으로 바뀌었다. 내란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위대한 선생의 있던 시절 이후로는, 결코 또 다른 영도자가 그들에게 보편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족 내부의 투쟁 속에서 보다 지적인 종족들이 점점 더 소멸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다면, 이 유능하고 지능적인 적색 인종에 의해서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졌을 것이다.

64:6.3 (723.2) 1. *The red man.* These peoples were remarkable specimens of the human race, in many ways superior to Andon and Fonta. They were a most intelligent group and were the first of the Sangik children to develop a tribal civilization and government. They were always monogamous; even their mixed descendants seldom practiced plural mating.

64:6.4 (723.3) In later times they had serious and prolonged trouble with their yellow brethren in Asia. They were aided by their early invention of the bow and arrow, but they had unfortunately inherited much of the tendency of their ancestors to fight among themselves, and this so weakened them that the yellow tribes were able to drive them off the Asiatic continent.

64:6.5 (723.4) About eigh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comparatively pure remnants of the red race went en masse across to North America, and shortly thereafter the Bering land isthmus sank, thus isolating them. No red man ever returned to Asia. But throughout Siberia, China, central Asia, India, and Europe they left behind much of their stock blended with the other colored races.

64:6.6 (723.5) When the red man crossed over into America, he brought along much of the teachings and traditions of his early origin. His immediate ancestors had been in touch with the later activities of the world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But in a short time after reaching the Americas, the red men began to lose sight of these teachings, and there occurred a great decline in intellectual and spiritual culture. Very soon these people again fell to fighting so fiercely among themselves that it appeared that these tribal wars would result in the speedy extinction of this remnant of the comparatively pure red race.

64:6.7 (723.6) Because of this great retrogression the red men seemed doomed when, about sixty-five thousand years ago, Onamonalonton appeared as their leader and spiritual deliverer. He brought temporary peace among the American red men and revived their worship of the “Great Spirit.” Onamonalonton lived to be ninety-six years of age and maintained his headquarters among the great redwood trees of California. Many of his later descendants have come down to modern times among the Blackfoot Indians.

64:6.8 (723.7) As time passed, the teachings of Onamonalonton became hazy traditions. Internecine wars were resumed, and never after the days of this great teacher did another leader succeed in bringing universal peace among them. Increasingly the more intelligent strains perished in these tribal struggles; otherwise a great civilization would have been built up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by these able and intelligent red men.

중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 건너온 후에, 북쪽에 있는 적색 인종은, 후대에 백색 인종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다른 세계의 영향권에 한 번도 접촉된 적이 없었다(에스키모는 제외하고). 그 적색 인종이, 후대의 아담의-혈통과 섞임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완벽하게 잃어버렸던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역사에서 나타난 대로, 적색 인종은 백색 인종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기꺼이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두 종족들의 피가 섞이지 않는다면, 둘 중의 하나의 운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2. 오렌지색 인종. 이 종족의 뚜렷한 특징은 아무 것이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쌓아 올리려는, 기묘한 충동이였으며, 단지 어느 부족이 얼마나 큰 언덕을 쌓을 수 있는지 보려고, 거대한 바위 언덕을 쌓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인 민족은 아니었지만, 행성영주의 학교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 대표들을 그곳에 파견하였다.

오렌지색 종족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갈 때 아프리카를 향하여 처음으로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아프리카에 안전하게 발을 붙인 적이 없었고, 후대에 도착한 녹색 인종에 의해서 멸종되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민족은 대부분의 문화와 영적 토대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불행한 종족은 포순타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보다 높은 삶의 위대한 복원이 있었으며, 그는 불행한 이 종족의 주(主)마음이었고, 약 300,000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을 때 그들에게 사명활동 하였다.

오렌지색과 녹색 사람사이에 최후의 거대한 투쟁이 이집트의 나일 계곡 하부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거의 10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는 극소수의 오렌지색 종족이 살아남아 있었다. 살아남은 이 민족들은 모두 흩어져서, 녹색 사람에 흡수되었고, 나중에 유입된 남색 사람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00,000년 전에, 하나의 종족으로서 존재하던 오렌지색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3. 황색 인종. 초기 황색 인종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버리고, 정착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농업에 기초한 가정생활을 개발하였다. 지능적으로는 적색 인종보다 뒤떨어졌지만, 인종적인 문명을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다른 모든 산기 민족들보다 우월했다. 그들은 형제우애의 영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부족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로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적색 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지구의 영적인 본부의 영향권으로부터 멀리까지 여행하였고, 칼리가스티아 배신 이후로는 극심한 암흑세계에 빠졌지만; 그러나 약 100,000년 전에, 싱랑톤이 이 부족들의 영도자관

64:6.9 (723.8) After crossing over to America from China, the northern red man never again came in contact with other world influences (except the Eskimo) until he was later discovered by the white man. It was most unfortunate that the red man almost completely missed his opportunity of being upstepped by the admixture of the later Adamic stock. As it was, the red man could not rule the white man, and he would not willingly serve him. In such a circumstance, if the two races do not blend, one or the other is doomed.

64:6.10 (723.9) 2. *The orange man.*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this race was their peculiar urge to build, to build anything and everything, even to the piling up of vast mounds of stone just to see which tribe could build the largest mound. Though they were not a progressive people, they profited much from the schools of the Prince and sent delegates there for instruction.

64:6.11 (724.1) The orange race was the first to follow the coast line southward toward Africa as the Mediterranean Sea withdrew to the west. But they never secured a favorable footing in Africa and were wiped out of existence by the later arriving green race.

64:6.12 (724.2) Before the end came, this people lost much cultural and spiritual ground. But there was a great revival of higher living as a result of the wise leadership of Porshunta, the master mind of this unfortunate race, who ministered to them when their headquarters was at Armageddon some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go.

64:6.13 (724.3) The last great struggle between the orange and the green men occurred in the region of the lower Nile valley in Egypt. This long-drawn-out battle was waged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and at its close very few of the orange race were left alive. The shattered remnants of these people were absorbed by the green and by the later arriving indigo men. But as a race the orange man ceased to exist about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64:6.14 (724.4) 3. *The yellow man.* The primitive yellow tribes were the first to abandon the chase, establish settled communities, and develop a home life based on agriculture. Intellectually they were somewhat inferior to the red man, but socially and collectively they proved themselves superior to all of the Sangik peoples in the matter of fostering racial civilization. Because they developed a fraternal spirit, the various tribes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relative peace, they were able to drive the red race before them as they gradually expanded into Asia.

64:6.15 (724.5) They traveled far from the influences of the spiritual headquarters of the world and drifted into great darkness following the Caligastia apostasy; but there occurred one brilliant age

게가 되어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선포하였을 때, 이 종족 사이에는 한 때 찬란한 시대가 발생했다.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색 인종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 부족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 때문이었다. 싱랑톤이 나타난 때로부터 현대의 중국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이 황인종들은 유란시아 국가의 좀 더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숫자가 계속 불어났다. 이 종족은 후대에 유입된 아담의-혈통의 강력한 유산을 아주 적기는 하지만, 받아들였다.

4. 녹색 인종. 녹색 종족은 원시인들 중에서 비교적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이었으며, 여러 방향으로 광대하게 이주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들이 흩어지기 전인, 350,000년 전에, 이 부족들은 폰타드의 지도하에 문화가 크게 되살아나는 체험을 했었다.

이 녹색 종족은 주로 세 개의 부류로 나뉘었다. 북쪽의 부족들은 정복을 당하여 노예가 되었고 황인종과 청인종들에게 흡수되었다. 동쪽에 있는 집단들은 그 당시의 인도인들과 피가 섞였고, 생존자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프리카로 들어간 남쪽의 부족들은 자기들과 거의 비슷하게 열등한 오렌지색 동족들을 파멸시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집단들은 이러한 투쟁 속에서 비슷하게 겨루었는데, 왜냐하면 두 집단들 각각 거인 종족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들 영도자 중에 많은 자가 키가 8피트와 9피트에 이르렀다. 녹색 인종 중에서 이러한 거인 종족들은 대개 남쪽에 있는 이 부족과 이집트에 있는 부족에 한정되었다.

승리를 이룩한 녹색 인종 중 남은 자들은 나중에 남색 인종, 기원적 산기 종족 분산의 중심지로부터 발달되고 이주한 마지막 유색 인종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5. 청색 인종. 청색 인종들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창을 발명하였고 나중에는 현대 문명의 많은 기술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그 청인종은 혼과 연관해서는 적색 인종과 같은 두뇌 힘을 가졌고, 황색 인종과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다. 아담의-후예들은 나중까지 존속된 유색 인종들 중에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초기의 청색 인종들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이었던 그 선생들의 설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나중에는 배반한 그 영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큰 혼돈에 빠졌다. 다른 원시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에 의해서 형성된 혼란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향을 완벽하게 극복한 적이 없었다.

칼리가스티아가 타락한 후 500년쯤 지났을

among this people when Singlangton, about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assumed the leadership of these tribes and proclaimed the worship of the “One Truth.”

64:6.16 (724.6) The survival of comparatively large numbers of the yellow race is due to their intertribal peacefulness. From the days of Singlangton to the times of modern China, the yellow race has been numbered among the more peaceful of the nations of Urantia. This race received a small but potent legacy of the later imported Adamic stock.

64:6.17 (724.7) 4. *The green man.* The green race was one of the less able groups of primitive men, and they were greatly weakened by extensive migrations in different directions. Before their dispersion these tribes experienced a great revival of culture under the leadership of Fantad, some thre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ago.

64:6.18 (724.8) The green race split into three major divisions: The northern tribes were subdued, enslaved, and absorbed by the yellow and blue races. The eastern group were amalgamated with the Indian peoples of those days, and remnants still persist among them. The southern nation entered Africa, where they destroyed their almost equally inferior orange cousins.

64:6.19 (724.9) In many ways both groups were evenly matched in this struggle since each carried strains of the giant order, many of their leaders being eight and nine feet in height. These giant strains of the green man were mostly confined to this southern or Egyptian nation.

64:6.20 (725.1) The remnants of the victorious green men were subsequently absorbed by the indigo race, the last of the colored peoples to develop and emigrate from the original Sangik center of race dispersion.

64:6.21 (725.2) 5. *The blue man.* The blue men were a great people. They early invented the spear and subsequently worked out the rudiments of many of the arts of modern civilization. The blue man had the brain power of the red man associated with the soul and sentiment of the yellow man. The Adamic descendants preferred them to all of the later persisting colored races.

64:6.22 (725.3) The early blue men were responsive to the persuasions of the teach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and were thrown into great confusion by the subsequent perverted teachings of those traitorous leaders. Like other primitive races they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turmoil produced by the Caligastia betrayal, nor did they ever completely overcome their tendency to fight among themselves.

64:6.23 (725.4) About five hundred years after

때, 원시 형태의 교육과 종교가—그러나 역시 덜 실제적이고 덜 유익한—널리 펼쳐진 부흥이 발생하였다. 그 청색 인종 속에서 올란돌프가 위대한 선생이 되었고, 많은 부족들로 하여금 “최극 우두머리”라는 이름하에 다시 참된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였다. 이것은 이 종족이 나중에 아담의-혈통과 섞임으로써 크게 향상되기 이전의 기간 중에서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건이었다.

구석기시대에 대한 유럽인들의 연구와 탐사 결과는 주로 고대의 이 청색 인종들의 도구들과 뼈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의 발굴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후대까지 유럽에 계속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소위 백색 인종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은 바로 이 청색 인종의 후손들이며, 그들은 처음에는 황색 인종 그리고 적색 인종과 약간 혼합되었고, 나중에는 보라색 인종의 많은 부분과 동화됨으로써 크게 발전하였다.

6. 남색 인종. 적색 인종이 모든 산악 민족 중에서 가장 진보된 종족이었듯이, 흑색 인종은 가장 진보가 안 된 종족이었다. 그들은 고지대에 있었던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맨 나중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로 이동하였고, 그 대륙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서 노예로 강제 이주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남색 종족은,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아담의-혈통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인종적 진보를 거의 전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에 홀로 존재하였던 남색 인종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각성을 체험하였던, 오로브논이 출현한 시대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로브논이 선포한 “하느님들의 하느님”을 나중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잃어버렸던 반면, 알 수 없는 분을 경배하려는 욕구는 전반적으로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하나의 경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이 남색 인종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종족과 마찬가지로 천상(天上)의 힘 앞에 아주 똑같은 자격을 갖추어 왔다.

이 기간은 다양한 종족들 간의 격렬한 투쟁의 시대들이었지만, 행성영주의 본부 근처에서는 보다 깨우친 그리고 보다 근래에 가르친 집단들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퍼의 반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시기까지 세계의 종족들은 거대한 문화적 정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색다른 종족들은 때때로 문화적 영적 재생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만산트는 행성영주 시대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전체 종족에게 확실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뛰어난 영도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적 수준이 낮은 많은 선생들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출현하였고; 전

Caligastia's downfall a widespread revival of learning and religion of a primitive sort — but none the less real and beneficial — occurred. Orlandof became a great teacher among the blue race and led many of the tribes back to the worship of the true God under the name of the “Supreme Chief.” This was the greatest advance of the blue man until those later times when this race was so greatly upstepped by the admixture of the Adamic stock.

64:6.24 (725.5) The European researches and explorations of the Old Stone Age have largely to do with unearthing the tools, bones, and artcraft of these ancient blue men, for they persisted in Europe until recent times. The so-called *white races* of Urantia are the descendants of these blue men as they were first modified by slight mixture with yellow and red, and as they were later greatly upstepped by assimilating the greater portion of the violet race.

64:6.25 (725.6) 6. *The indigo race.* As the red men were the most advanced of all the Sangik peoples, so the black men were the least progressive. They were the last to migrate from their highland homes. They journeyed to Africa, taking possession of the continent, and have ever since remained there except when they have been forcibly taken away, from age to age, as slaves.

64:6.26 (725.7) Isolated in Africa, the indigo peoples, like the red man, received little or none of the race elevation which would have been derived from the infusion of the Adamic stock. Alone in Africa, the indigo race made little advancement until the days of Orvonon, when they experience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While they later almost entirely forgot the “God of Gods” proclaimed by Orvonon, they did not entirely lose the desire to worship the Unknown; at least they maintained a form of worship up to a few thousand years ago.

64:6.27 (725.8) Notwithstanding their backwardness, these indigo peoples have exactly the same standing before the celestial powers as any other earthly race.

64:6.28 (725.9) These were ages of intense struggles between the various races, but near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the more enlightened and more recently taught groups lived together in comparative harmony, though no great cultural conquest of the world races had been achieved up to the time of the serious disruption of this regime by the outbreak of the Lucifer rebellion.

64:6.29 (726.1) From time to time all of these different peoples experienced cultural and spiritual revivals. Mansant was a great teacher of the post-Planetary Prince days. But mention is made only of those outstanding leaders and teachers who markedly influenced and inspired a whole race. With the passing of time, many lesser teachers arose in

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각자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들이 합쳐져서 문명 세계의 총체적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공헌하였으며, 특별히 칼리가스티아의 반란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이 도착하기까지의 길고도 어두운 시대 동안 그러하였다.

셋 또는 여섯 가지의 유색 인종들이, 우주에 있는 세계들 속에 진화하도록 계획하는 데에는 많은 유익하고도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자들이 비록 이 이유들 모두를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1. 다양성은 자연적인 선택의 폭넓은 작용, 우월한 혈통의 차별적인 생존 방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이들 서로 다른 종족들이 우월한 유전 인자들을 보유할 때에는, 다양한 종족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보다 강하고 우수한 종족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민족이 우수한 아담의-혈통과 일찍이 철저히 섞임으로써 이후에 그러한 공동민족이 효과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의 종족들은 아담의 혈통과 섞임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종족적인 상황 아래에 있는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실험을 시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비참한 재난이 될 것이다.

3. 경쟁은 종족들의 분화(分化)에 의해서 건설적으로 자극될 수 있다.

4. 각 인종 속의 여러 인종들과 집단들의 지위 속에 있는 차이점들은, 인간적인 관용과 이타심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5. 인간 종족의 동질성은, 진화하는 세계의 종족들이 비교적 높은 차원의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까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different regions; and in the aggregate they contributed much to the sum total of those saving influences which prevented the total collapse of cultural civilization, especially during the long and dark ages between the Caligastia rebellion and the arrival of Adam.

64:6.30 (726.2) There are many good and sufficient reasons for the plan of evolving either three or six colored races on the worlds of space. Though Urantia mortals may not be in a position fully to appreciate all of these reasons, we would call attention to the following:

64:6.31 (726.3) 1. Variety is indispensable to opportunity for the wide functioning of natural selection, differential survival of superior strains.

64:6.32 (726.4) 2. Stronger and better races are to be had from the interbreeding of diverse peoples when these different races are carriers of superior inheritance factors. And the Urantia races would have benefited by such an early amalgamation provided such a conjoint people could have been subsequently effectively upstepped by a thoroughgoing admixture with the superior Adamic stock. The attempt to execute such an experiment on Urantia under present racial conditions would be highly disastrous.

64:6.33 (726.5) 3. Competition is healthfully stimulated by diversification of races.

64:6.34 (726.6) 4. Differences in status of the races and of groups within each race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tolerance and altruism.

64:6.35 (726.7) 5. Homogeneity of the human race is not desirable until the peoples of an evolving world attain comparatively high levels of spiritual development.

제 7 장. 유색 인종들의 분산

산길 가족으로부터 유색 후손들이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인근에 있는 지방으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 쓸 무렵에, 다섯 번째 빙하, 지질학자들이 3번째로 계산하는 빙하 지대가 유럽과 아시아 위를 지나 남쪽으로 상당히 전진하였다. 초기의 이 유색 인종들은 자기들이 기원된 빙하기의 혹독함과 곤핍함에 의해서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 빙하 지대는 아시아에서 무척 확장되어 수천 년 동안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아라비아 지역이 융기된 결과로 지중해가 퇴각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그러하여 이 산길 민족들은, 서로 다른 종족들 간에 일찍부터 현시된 특유한 그러나 자연스러운 대립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00년 동안 구릉지 근처에 퍼져 있었고 어느

7. DISPERSION OF THE COLORED RACES

64:7.1 (726.8) When the colored descendants of the Sangik family began to multiply, and as they sought opportunity for expansion into adjacent territory, the fifth glacier, the third of geologic count, was well advanced on its southern drift over Europe and Asia. These early colored races were extraordinarily tested by the rigors and hardships of the glacial age of their origin. This glacier was so extensive in Asia that for thousands of years migration to eastern Asia was cut off. And not until the later retreat of the Mediterranean Sea, consequent upon the elevation of Arabia, was it possible for them to reach Africa.

64:7.2 (726.9) Thus it was that for almost one hundred thousand years these Sangik peoples spread out around the foothills and mingled together more or less, notwithstanding the peculiar

정도 서로 혼합되었다.

행성영주와 아담의 중간 시대 동안, 지금까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지역들 중에서 인도가 가장 다양한 인종들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녹색, 오렌지색, 그리고 남색 인종들이 너무 많이 혼합되었다. 이러한 2차 산기 민족들은 남쪽 지역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적응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나중에 아프리카로 이주하였다. 1차 산기 민족들은 우월한 종족이었고, 열대 지방을 회피하였으며, 적색 인종은 황색 인종 바로 뒤를 따라서 북동쪽을 향하여 아시아로 건너갔고, 반면에 청색 인종은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으로 들어갔다.

적색 인종은 북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퇴각하는 빙하를 뒤따라갔고, 인도에 있는 고지대를 돌아서 북동쪽 아시아 전역을 장악하였다. 황색 부족들이 그들 바로 뒤에 따라갔고, 나중에는 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내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게 하였다.

비교적 순수한 혈통인 적색 인종 생존자들이 아시아를 떠났을 때, 그들 중에는 11개 부족만 남아있었으며, 7,000명이 약간 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다. 이 부족들을 따라서, 혼혈 혈통의 소규모 집단들 세 개가 동행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은 오렌지색과 청색 종족이 혼합된 것이었다. 이들 세 집단은 적색 인종과 충분히 형제우애관계를 이룬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 들어갔고, 그들은 나중에 그곳에서, 황색 인종과 적색 인종이 혼합된 작은 집단과 합류하였다. 이 종족들은 서로 배우자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혼혈 종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순수한 혈통의 적색 인종보다는 전쟁을 훨씬 싫어하는 종족이었다. 5,0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혼혈 종족은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각각 별도의 문명을 형성하였다. 남아메리카의 부족은 아주 희미하게 아담의 피를 받았다.

초기의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혼합되었고, 이 연합의 후손들은 동쪽 방향과 남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였고,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황색 인종에게 쫓겨서 여러 반도들과 근처에 있는 바다 속의 섬들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금-현재의 갈색 인종들이다.

황색 인종들은 동부 아시아의 중앙 지대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 지금이나 그 때나 황색 인종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지는 하였지만, 적색과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종족들이 멸종의 위기에 이를 정도로 벌였던 끊임없고 잔인한 전쟁보다는 훨씬 덜하였다. 이 세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로 구성된 적에 의해서 거의 절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but natural antipathy which early manifested itself between the different races.

64:7.3 (726.10) Between the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Adam, India became the home of the most cosmopolitan population ever to be found on the face of the earth. But it was unfortunate that this mixture came to contain so much of the green, orange, and indigo races. These secondary Sangik peoples found existence more easy and agreeable in the southlands, and many of them subsequently migrated to Africa. The primary Sangik peoples, the superior races, avoided the tropics, the red man going northeast to Asia, closely followed by the yellow man, while the blue race moved northwest into Europe.

64:7.4 (727.1) The red men early began to migrate to the northeast, on the heels of the retreating ice, passing around the highlands of India and occupying all of northeastern Asia. They were closely followed by the yellow tribes, who subsequently drove them out of Asia into North America.

64:7.5 (727.2) When the relatively pure-line remnants of the red race forsook Asia, there were eleven tribes, and they numbered a little over seven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These tribes were accompanied by three small groups of mixed ancestry, the largest of these being a combination of the orange and blue races. These three groups never fully fraternized with the red man and early journeyed southward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 where they were later joined by a small group of mixed yellows and reds. These peoples all intermarried and founded a new and amalgamated race, one which was much less warlike than the pure-line red men. Within five thousand years this amalgamated race broke up into three groups, establishing the civilizations respectively of Mexico,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The South American offshoot did receive a faint touch of the blood of Adam.

64:7.6 (727.3) To a certain extent the early red and yellow men mingled in Asia, and the offspring of this union journeyed on to the east and along the southern seacoast and, eventually, were driven by the rapidly increasing yellow race onto the peninsulas and near-by islands of the sea. They are the present-day brown men.

64:7.7 (727.4) The yellow race has continued to occupy the central regions of eastern Asia. Of all the six colored races they have survived in greatest numbers. While the yellow men now and then engaged in racial war, they did not carry on such incessant and relentless wars of extermination as were waged by the red, green, and orange men. These three races virtually destroyed themselves before they were finally all but annihilated by their enemies of other races.

다섯 번째 빙하가 유럽 남부 멀리까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기 민족들이 북서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빙하가 물러감에 따라, 청색 인종은 소수의 다른 인종 집단들과 함께 안돈 부족들의 옛 자취를 따라 서쪽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물결처럼 유럽으로 밀려들어갔고, 그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초기에 같은 조상이었던 안돈의 후예인 네안데르탈 후손들에게 유럽에서 곧 대항하게 되었다. 보다 오래된 유럽의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빙하에 밀려서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침입해 들어오는 동족인 산기 부족들로부터 신속히 대항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고 곧 흡수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산기 부족들은 초기의 안돈의-평원 부족들의 열등한 후손들보다 지능이 높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그래서 이들 산기 부족들과 네안데르탈인들이 섞임으로써 보다 오래된 네안데르탈인 종족은 즉시로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산기 피, 특히 청인의 피를 주입하여 네안데르탈 민족을 현저하게 향상을 만들도록 생산한 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 전역을 휩쓴 더욱 증가되는 지능적 부족들의 뒤따르는 물결에서 드러났다.

그 뒤에 있었던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 동안, 새로운 이 네안데르탈 종족은 잉글랜드로부터 인도로 퍼져나갔다. 청색 인종 중에서 생존자들이 옛 페르시아 반도에 남아 있었으며, 나중에는 특정한 다른 부족들 특히 주로 황색 인종들과 혼합되었고; 그 결과로 피가 섞인,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의 보라색 종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룩한 종족이 현대 아랍인들 중에서 거무스름한 유목민들로 남아 있다.

현대 민족들의 산기 계보를 정체성 확인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나중에는 아담의-피와 섞임으로써 종족들이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우월한 종족들은 북쪽 또는 온화한 지방을 찾았지만, 반면에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종족들은 서쪽 방향으로 퇴각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분리시키는 새로 융기된 연결-육지를 지나, 계속하여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였다.

마지막 산기 민족들은 그들 종족의 기원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남색 인종이었다. 그 무렵에 녹색 인종은 이집트에서 오렌지색 종족을 전멸시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들도 크게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거대한 무리의 흑색 이주자들이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팔레스타인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육체적으로 강한 이 남색 인종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숫자상으로 훨씬 강하였기 때문에 녹색 인종을 전멸시켰다. 이 남색 인종들은 오렌지색 종족 중에서 남은 자들과 녹색 인종 대부분을 흡수하였고, 남색 부족들은 이러한 인종적 혼합에 의해서 눈에 띌 정도로 진보되었다.

64:7.8 (727.5) Since the fifth glacier did not extend so far south in Europe, the way was partially open for these Sangik peoples to migrate to the northwest; and upon the retreat of the ice the blue men, together with a few other small racial groups, migrated westward along the old trails of the Andon tribes. They invaded Europe in successive waves, occupying most of the continent.

64:7.9 (727.6) In Europe they soon encountered the Neanderthal descendants of their early and common ancestor, Andon. These older European Neanderthals had been driven south and east by the glacier and thus were in position quickly to encounter and absorb their invading cousins of the Sangik tribes.

64:7.10 (727.7) In general and to start with, the Sangik tribes were more intelligent than, and in most ways far superior to, the deteriorated descendants of the early Andonic plainsmen; and the mingling of these Sangik tribes with the Neanderthal peoples led to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e older race. It was this infusion of Sangik blood, more especially that of the blue man, which produced that marked improvement in the Neanderthal peoples exhibited by the successive waves of increasingly intelligent tribes that swept over Europe from the east.

64:7.11 (727.8) During the following interglacial period this new Neanderthal race extended from England to India. The remnant of the blue race left in the old Persian peninsula later amalgamated with certain others, primarily the yellow; and the resultant blend, subsequently somewhat upstepped by the violet race of Adam, has persisted as the swarthy nomadic tribes of modern Arabs.

64:7.12 (728.1) All efforts to identify the Sangik ancestry of modern peoples must take into account the later improvement of the racial strains by the subsequent admixture of Adamic blood.

64:7.13 (728.2) The superior races sought the northern or temperate climes, while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successively gravitated to Africa over the newly elevated land bridge which separated the westward retreating Mediterranean from the Indian Ocean.

64:7.14 (728.3) The last of the Sangik peoples to migrate from their center of race origin was the indigo man. About the time the green man was killing off the orange race in Egypt and greatly weakening himself in so doing, the great black exodus started south through Palestine along the coast; and later, when these physically strong indigo peoples overran Egypt, they wiped the green man out of existence by sheer force of numbers. These indigo races absorbed the remnants of the orange man and much of the stock of the green man, and certain of the indigo tribes were considerably improved by this racial

그리하여 이집트는, 처음에는 오렌지색 인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녹색 인종에 의해서, 그 뒤로는 남색(검은 색) 인종에 의해서,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남색과 청색 그리고 변화된 녹색 인종들의 혼혈 종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유럽의 청색 인종과, 아라비아의 혼합된 종족들이 이집트에서 남색 인종을 몰아내었고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먼 남쪽 지방으로 도망갔다.

산길 이주가 밀려들어오자, 녹색과 오렌지색 인종들은 없어졌고, 적색 인종은 북아메리카를 고수하였으며, 황색 인종은 동부 아시아에, 청색 인종은 유럽에, 그리고 남색 인종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도는 2차 산길 종족들의 혼혈 종족과, 갈색 인종,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의 혼혈 종족을 숨겨주었고, 아시아 해안에는 많은 섬들을 갖고 있었다. 보다 우월한 잠재력을 가진 혼혈 종족이 남아메리카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다 순수한 안돈-사람들이 유럽의 최고 북쪽 지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북동쪽에서 살았다.

빙하가 가장 먼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는 동안, 가장 서쪽에 있던 안돈 부족들은 바로 바다가 가까운 곳까지 밀려갔다. 그들은 현재 잉글랜드 섬인, 남쪽으로 뻗은 좁은 띠 모양의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되는 빙하 확장에 대한 구전(口傳)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출현했을 때에는 바다 쪽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다를 탐험한 첫 번째 종족이 되었다. 그들은 배를 만들었고, 겁나게 하는 빙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린란드에 도착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전멸되었다.

약 80,000년 조금 더 이전에, 적색 인종이 북아메리카의 북쪽 지대로 들어간 직후에, 유란시아 원주민인 이 에스키모 후손들은, 얼어붙은 북해와 확장되는 그린란드의 지역적인 얼음 덩어리에 밀려서, 보다 나은 땅, 새로운 고향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다행히도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그 해협은 그 당시에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 북쪽 땅 덩어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들은 적색 인종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로 약 2,100년이 지난 후에 그 대륙에 도착하였다. 그 후에, 청색 인종과 섞인 소수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후대의 에스키모들과 혼합되었으며, 이 연합은 에스키모 부족들보다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약 5,000년 전에, 고립된 에스키모 집단과 인디언 부족 사이에는 허드슨 만 남동쪽 해안선에서 우연한 만남이 발생하였다. 이 두 부족들은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은 곧 서로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에스키모인들은 결국에는 숫자가 훨씬 많은 적색 인종에게

amalgamation.

64:7.15 (728.4) And so it appears that Egypt was first dominated by the orange man, then by the green, followed by the indigo (black) man, and still later by a mongrel race of indigo, blue, and modified green men. But long before Adam arrived, the blue men of Europe and the mixed races of Arabia had driven the indigo race out of Egypt and far south on the African continent.

64:7.16 (728.5) As the Sangik migrations draw to a close, the green and orange races are gone, the red man holds North America, the yellow man eastern Asia, the blue man Europe, and the indigo race has gravitated to Africa. India harbors a blend of the secondary Sangik races, and the brown man, a blend of the red and yellow, holds the islands off the Asiatic coast. An amalgamated race of rather superior potential occupies the highlands of South America. The purer Andonites live in the extreme northern regions of Europe and in Iceland, Greenland, and northeastern North America.

64:7.17 (728.6) During the periods of farthest glacial advance the westernmost of the Andon tribes came very near being driven into the sea. They lived for years on a narrow southern strip of the present island of England. And it was the tradition of these repeated glacial advances that drove them to take to the sea when the sixth and last glacier finally appeared. They were the first marine adventurers. They built boats and started in search of new lands which they hoped might be free from the terrifying ice invasions. And some of them reached Iceland, others Greenland, but the vast majority perished from hunger and thirst on the open sea.

64:7.18 (728.7) A little more than eighty thousand years ago, shortly after the red man entered northwestern North America, the freezing over of the north seas and the advance of local ice fields on Greenland drove these Eskimo descendants of the Urantia aborigines to seek a better land, a new home; and they were successful, safely crossing the narrow straits which then separated Greenland from the northeastern land masses of North America. They reached the continent about twenty-one hundred years after the red man arrived in Alaska. Subsequently some of the mixed stock of the blue man journeyed westward and amalgamated with the later-day Eskimos, and this union was slightly beneficial to the Eskimo tribes.

64:7.19 (728.8) About five thousand years ago a chance meeting occurred between an Indian tribe and a lone Eskimo group on the southeastern shores of Hudson Bay. These two tribes found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very soon they intermarried with the result that these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부터, 약 1,000년 전에 백색 인종이 우연히 대서양 해안에 상륙할 때까지, 북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이 다른 인종과 이루어진 유일한 접촉이었다.

이러한 초기 투쟁들의 특징은 용기와 용맹 그리고 영웅심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희의 초기 조상들의 순수하고 강건한 그 특색들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후대의 종족들에게서 없어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진보된 문명의 그 많은 개선의 가치들을 깊이 알아차리고는 있지만, 때로는 숭고함과 웅대함에 가까웠던, 너희 초기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숭고한 끈기와 장엄한 현신을 다시 보고 싶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운반자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Eskimos were eventually absorbed by the more numerous red men. And this represents the only contact of the North American red man with any other human stock down to about one thousand years ago, when the white man first chanced to land on the Atlantic coast.

64:7.20 (729.1) The struggles of these early ages were characterized by courage, bravery, and even heroism. And we all regret that so many of those sterling and rugged traits of your early ancestors have been lost to the later-day races. While we appreciate the value of many of the refinements of advancing civilization, we miss the magnificent persistency and superb devotion of your early ancestors, which oftentimes bordered on grandeur and sublimity.

64:7.21 (729.2) [Presented by a Life Carrier resident on Urantia.]

제 65 편 진화의 전반적-통제

⇨ 064

유랜시아 책

06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5 편 진화의 전반적-통제

색션

소개

- 제 1 장. 생명운반자의 기능
- 제 2 장. 진화의 파노라마
- 제 3 장. 진화의 육성
- 제 4 장. 유랜시아의 모험
- 제 5 장. 생명-진화 변천
- 제 6 장. 생명의 진화적인 기법
- 제 7 장. 진화하는 마음 차원
- 제 8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진화

PAPER 65

THE OVERCONTROL OF
EVOLUTION

SECTIONS

Introduction

- 1. Life Carrier Functions
- 2. The Evolutionary Panorama
- 3. The Fostering of Evolution
- 4. The Urantia Adventure
- 5. Life-Evolution Vicissitudes
- 6. Evolutionary Techniques of Life
- 7. Evolutionary Mind Levels
- 8. Evolution in Time and Space

소개

기본적인 진화하는 물질적 생명—전(前)마음 생명—은, 임명된 생명운반자들의 활동적인 임무와 연대하여, 주(主)물리통제자들과 일곱 주(主)영들의 생명-분배 사명활동에서 형성된 고안이다. 이러한 삼중(三重) 창조성의 조화-협동 기능의 결과로, 마음에 관한 유기체에서의 물리적 수용 능력—외부 환경적 자극에, 이어서 나중에는, 내부적 자극에, 곧 유기체적 마음 자체 안에서 기원을 취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능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적 기능구조—이 발전된다.

그 때, 생명 생산과 진화에서의 세 개의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원들이 있다:

- 1. 물리적 에너지 권역—마음-수용능력 생산.
- 2. 보조 영들의 마음 사명활동—영 수용능력에 영향을 줌.
- 3. 필사자 마음의 영 자질—생각 조절자의 증여에서 정점에 달함.

INTRODUCTION

65:0.1 (730.1) BASIC evolutionary material life — premind life — is the formulatio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life-impartment ministr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conjunction with the active ministration of the ordained Life Carriers. As a result of the co-ordinate function of this threefold creativity there develops organismal physical capacity for mind — material mechanisms for intelligent reaction to external environmental stimuli and, later on, to internal stimuli, influences taking origin in the organismal mind itself.

65:0.2 (730.2) There are, then, three distinct levels of life production and evolution:

65:0.3 (730.3) 1. The physical-energy domain — mind-capacity production.

65:0.4 (730.4) 2. The mind ministry of the adjutant spirits — impinging upon spirit capacity.

65:0.5 (730.5) 3. The spirit endowment of mortal mind — culminating in Thought Adjuster bestowal.

유기체적 환경 반응들의 기계적이고 학습 불가능한 차원들은 물리통제자들의 권역들이다. 보조 마음-영들은 순응할 수 있거나 또는 마음의 비(非)기계적 학습 가능 유형들—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기체의 반응 기능구조들—을 활성화하고 규제한다. 그리고 영 보조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잠재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생명운반자들은 인간의 의지—하느님을 알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선택의 힘—가 나타나는 순간까지 진화과정의 환경적 양상들을 상당히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통제한다.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유기체 진화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운반자들과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영 보조자들의 집대성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유란시아의 또는 다른 곳의—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이유이다.

제 1 장. 생명운반자의 기능

생명운반자들은 창조체들이 소유하는 몇 개 계층의 개인성 변환의 잠재들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 지역우주의 이 아들들은 세 가지 다른 실존 위상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그들 기원의 실존 상태인, 중간-위상 아들들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존 단계의 생명운반자는, 전기 화학적 권역에서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 입자들을 살아있는 실존 단위로 만드는 자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운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다:

1. 전기화학의 물리적 차원.
2. 준(準)-모론시아 실존인 통상적 중간-위상.
3. 진보된 반(半)영적 차원.

생명운반자들이 생명 이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작업 장소를 선택한 후에, 그들은 생명운반자 변형에 대해 천사장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집단은 열 개의 서로 다른 개인성 계층들로 구성되며, 물리통제자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허락과 가브리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수용능력 안에서 행사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통솔한다. 이 존재들이 알맞게 순환회로화 되면, 그들은 생명운반자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전기-화학의 물리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러한 변형들을 일으킬 수 있다.

생명 원형틀들이 형성되고 물질적 유기체들

65:0.6 (730.6) The mechanical-nonteachable levels of organismal environmental response are the domain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The adjutant mind-spirits activate and regulate the adaptative or nonmechanical-teachable types of mind — those response mechanisms of organisms capable of learning from experience. And as the spirit adjutants thus manipulate mind potentials, so do the Life Carriers exercise considerable discretionar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evolutionary processe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 the ability to know God and the power of choosing to worship him.

65:0.7 (730.7) It is the integrated functioning of the Life Carri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spirit adjutants that conditions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on the inhabited worlds. And this is why evolution — on Urantia or elsewhere — is always purposeful and never accidental.

1. LIFE CARRIER FUNCTIONS

65:1.1 (730.5) The Life Carriers are endowed with potentials of personality metamorphosis which but few orders of creatures possess. These Sons of the local universe are capable of functioning in three diverse phases of being. They ordinarily perform their duties as mid-phase Sons, that being the state of their origin. But a Life Carrier in such a stage of existence could not possibly function in the electrochemical domains as a fabricator of physical energies and material particles into units of living existence.

65:1.2 (730.6) Life Carriers are able to function and do function on the following three levels:

65:1.3 (730.7) 1. The physical level of electrochemistry.

65:1.4 (730.8) 2. The usual mid-phase of quasi-morontial existence.

65:1.5 (730.9) 3. The advanced semispiritual level.

65:1.6 (731.1) When the Life Carriers make ready to engage in life implantation, and after they have selected the sites for such an undertaking, they summon the archangel commission of Life Carrier transmutation. This group consists of ten orders of diverse personalities, including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and is presided over by the chief of archangels, who acts in this capacity by the mandate of Gabriel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Ancients of Days. When these beings are properly encircuited, they can effect such modifications in the Life Carriers as will enable them immediately to function on the physical levels of electrochemistry.

65:1.7 (731.2) After the life patterns have been

이 충분히 완료된 후에, 생명 증식에 관계되는 초물질적 기체들이 즉시 활동하게 되며, 생명이 실존하게 된다. 그 후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중간-위상의 개인성 실존으로 즉시 돌아오며, 그러한 신분에서 그들은, 비록 살아있는 물체의 새로운 원형들을 조직—창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진화하는 유기체들을 움직일 수 있다.

유기적 진화가 특정한 과정을 마치고 인간 유형의 자유의지가 가장 높은 진화 유기체들에서 나타나게 되면, 생명운반자들은 행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포기서약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유기체 진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미래의 충고자들로 남기를 선택한 생명운반자들의 자발적인 서약들이 받아들여진 후에, 새롭게 진화된 의지적 창조체들의 양육이 위탁될 것이며, 체계 주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그리고 가브리엘의 허락에 의해서 활동하는 저녁별들의 우두머리가 통솔하는 12인 위원회가 소집된다; 그리고 이 생명운반자들은 즉시로 개인성 실존의 세 번째 위상—반(半)영적 차원의 존재—로 변형된다. 그리고 나는 유란시아에서 안돈과 폰타의 시대 이후로 줄곧 이러한 세 번째 위상의 실존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때, 우리가 온통 영적인 상태가 될 가능한 네 번째 존재 단계를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 바람직하고 진보된 신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제 2 장. 진화의 파노라마

해초(海草)로부터, 지구의 창조들의 지배자 신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적 투쟁과 마음의 생존의 소설이다. 사람의 최초 조상들은 문자 그대로 고대의 내륙 바다에 광대한 해안선의 완만한 난류 만(灣)들과 초호들의 해양 지층에 있는 점액과 분비물이었으며, 바로 그 물속에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세 개의 독립된 생명 이식(利息)을 정착시켰던 것이다.

동물처럼 보이는 어중간한 경계선의 유기체들로 귀착된 이 신기원적인 변화 과정에 관련하였던 해양 식물의 초기 유형의 종들이 극소수만이 오늘날 실존하고 있다. 해면체들은 이 초기의 중간유형들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은 것들이며, 그 유기체들을 통하여 식물로부터 동물로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초기에 변화 형태들은, 현재의 해면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흡사하였다; 그것들은 정말로 어중간한 경계선상의 유기체들—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이었지만 결국에는

formulated and the material organizations have been duly completed, the supermaterial forces concerned in life propagation become forthwith active, and life is existent. Whereupon the Life Carriers are immediately returned to their normal mid-phase of personality existence, in which estate they can manipulate the living units and maneuver the evolving organisms, even though they are shorn of all ability to organize — create — new patterns of living matter.

65:1.8 (731.3) After organic evolution has run a certain course and free will of the human type has appeared in the highest evolving organisms, the Life Carriers must either leave the planet or take renunciation vows; that is, they must pledge themselves to refrain from all attempts further to influence the course of organic evolution. And when such vows are voluntarily taken by those Life Carriers who choose to remain on the planet as future advisers to those who shall be intrusted with the fostering of the newly evolved will creatures, there is summoned a commission of twelve, presided over by the chief of the Evening Stars, acting by authority of the System Sovereign and with permission of Gabriel; and forthwith these Life Carriers are transmuted to the third phase of personality existence — the semispiritual level of being. And I have functioned on Urantia in this third phase of existence ever since the times of Andon and Fonta.

65:1.9 (731.4) We look forward to a time when the universe may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to a possible fourth stage of being wherein we shall be wholly spiritual, but it has never been revealed to us by what technique we may attain this desirable and advanced estate.

2. THE EVOLUTIONARY PANORAMA

65:2.1 (731.5) The story of man's ascent from seaweed to the lordship of earthly creation is indeed a romance of biologic struggle and mind survival. Man's primordial ancestors were literally the slime and ooze of the ocean bed in the sluggish and warm-water bays and lagoons of the vast shore lines of the ancient inland seas, those very waters in which the Life Carriers established the three independent life implantations on Urantia.

65:2.2 (731.6) Very few species of the early types of marine vegetation that participated in those epochal changes which resulted in the animallike borderland organisms are in existence today. The sponges are the survivors of one of these early midway types, those organisms through which the gradual transition from the vegetable to the animal took place. These early transition forms, while not identical with modern sponges, were much like them; they were true borderline organisms — neither vegetable nor animal — but they eventually

진정한 동물 형태의 생명으로 발달되었다.

박테리아는, 매우 원시적 성질의 단순한 식물 유기체들, 초기 생명의 여명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기생 습성에서 오히려 어느 정도 퇴화를 보인다. 많은 곰팡이들도 진화에 있어서 퇴행 운동을 나타내어, 엽록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린 식물로서 거의 기생성이 되어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들 대부분과, 그와 유사한 다수의 바이러스 몸체들은 실제로 변질된 기생 진균류의 집단에 속한다. 중간 시대들 동안 거대한 전체 식물 생명계가 조상들로부터 진화되었고, 반면에 박테리아는 동일한 조상들로부터 퇴보하였다.

동물 생명의 보다 높은 원생동물 유형이 바로 출현하였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일 세포 동물 유기체인 아메바가, 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오고 있지만,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 진화에서 최후의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살아 있는 것이다. 미세한 이 생물과 이것과 유사한 원생동물들은, 박테리아가 식물 왕국을 이룬 것처럼, 동물 창조를 이룩하였다; 그것들은 생명 분화(分化)와 함께 뒤이어지는 발전의 실패에서 최초의 초기 진화 단계들의 잔존을 대변한다.

오래지 않아 초기의 단세포 동물 유형들은 서로 군(群)으로 연관되었고, 처음에는 볼복스의 형태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히드라와 해파리 종류로 형성되었다. 훨씬 뒤에는 불가사리, 돌 백합, 성게, 해삼, 지네, 곤충, 거미, 갑각류, 그리고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렁이와 거머리들로 진화되었으며, 연체동물들—굴, 낙지, 달팽이—이 그 뒤를 이었다. 수백 가지 종들이 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길고 긴 투쟁에서 살아남은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된다. 그러한 진보되지 못한 표본들은, 나중에 나타난 어류(魚類)와 함께, 오늘날 초기의 하등동물들의, 진보에 실패한 생명나무의 가지들의, 고정된 유형들을 대변한다.

그렇게 하여 최초의 척추동물인 물고기가 출현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어류로부터 두 가지 독특한 변경, 개구리와 도롱뇽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물 생명에서 일련의 진보적인 분화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사람으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은 개구리였다.

개구리는 최초의 살아남은 인간-종족의 조상들 중의 하나이지만, 이 오랜 시대들에서와 같이 오늘 날까지 존속하는, 그것 역시 진보에 실패하였다. 개구리는 현재 지구 위에 살아있는 초기 여명기 종족들의 종(種) 조상일 뿐이다. 인간 종족은 개구리에서부터 에스키모인까지 사이에 살아남은 조상이 없다.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ue animal forms of life.

65:2.3 (732.1) The bacteria, simple vegetable organisms of a very primitive nature, are very little changed from the early dawn of life; they even exhibit a degree of retrogression in their parasitic behavior. Many of the fungi also represent a retrograde movement in evolution, being plants which have lost their chlorophyll-making ability and have become more or less parasitic. The majority of disease-causing bacteria and their auxiliary virus bodies really belong to this group of renegade parasitic fungi. During the intervening ages all of the vast kingdom of plant life has evolved from ancestors from which the bacteria have also descended.

65:2.4 (732.2) The higher protozoan type of animal life soon appeared, and appeared *suddenly*. And from these far-distant times the ameba, the typical single-celled animal organism, has come on down but little modified. He disports himself today much as he did when he was the last and greatest achievement in life evolution. This minute creature and his protozoan cousins are to the animal creation what bacteria are to the plant kingdom; they represent the survival of the first early evolutionary steps in life differentiation together with *failure of subsequent development*.

65:2.5 (732.3) Before long the early single-celled animal types associated themselves in communities, first on the plan of the Volvox and presently along the lines of the Hydra and jellyfish. Still later there evolved the starfish, stone lilies, sea urchins, sea cucumbers, centipedes, insects, spiders, crustaceans, and the closely related groups of earthworms and leeches, soon followed by the mollusks — the oyster, octopus, and snail. Hundreds upon hundreds of species intervened and perished; mention is made only of those which survived the long, long struggle. Such nonprogressive specimens, together with the later appearing fish family, today represent the stationary types of early and lower animals, branches of the tree of life which failed to progress.

65:2.6 (732.4) The stage was thus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first backboned animals, the fishes. From this fish family there sprang two unique modifications, the frog and the salamander. And it was the frog which began that series of progressive differentiations in animal life that finally culminated in man himself.

65:2.7 (732.5) The frog is one of the earliest of surviving human-race ancestors, but it also failed to progress, persisting today much as in those remote times. The frog is the only species ancestor of the early dawn races now living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human race has no surviving ancestry between the frog and the

개구리로부터 실질적으로 멸종된 거대한 동물과인 파충류가 나왔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류 전체와 수많은 계층들의 포유류들이 그것들로부터 기원되었다.

인간-이전(以前)족의 모든 진화의 가장 큰 도약은 아마도 파충류로부터 조류가 생겼을 때일 것이다. 오늘날의 조류 유형들은—독수리, 오리, 비둘기, 그리고 타조—모두 멀고 먼 옛날의 수많은 파충류들로부터 유래되었다.

개구리 과에서 유래된 파충류들의 세계는 오늘날 생존된 네 부류로 대표 된다; 뱀과 도마뱀 그리고 그들과 동류인 악어와 거북이같이 두 개의 비(非)진보적인 부류들, 조류와 같이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부류, 포유동물의 조상과 그리고 인간 종들의 직접적인 가계인 네 번째 부류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파충류의 거대(巨大)함은 코끼리와 마스토돈에서 잔향이 발견되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가 경충 경충 뛰는 캥거루를 통하여 영속되고 있다.

우란시아에는 오직 14개의 분류 문(問)이 나타났다, 어류가 마지막을 장식하였고, 조류와 포유류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가 발전되지 않았다.

태반을 가진 포유류가 갑자기 솟아 나온 곳은, 민첩하고 체구가 작지만 비교적 큰 뇌를 가진 육식성 파충류 공룡에서였다. 이 포유동물들은 급속도로 그리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었고, 현대의 일반적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래와 물개 등과 같은 해양 생명 유형과 박쥐 류(類)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주로 동-서쪽의 보호된 고대(古代) 바다에서 생명의 서부 이식으로부터 유래된 고등 포유류로부터 진화되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동부와 중부 집단들은 동물 실존의 인간-이전(以前)족 단계들의 성취를 위하여 초기에 유리하게 진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들이 지나면서, 생명 설치의 동부 중심은, 그것의 가장 높은 유형의 세포 원형질 형태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들을 당하여 인간 잠재성들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언제까지나 잃어버림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능적 인간-이전(以前)족 상태의 달성에 실패하였다,

이 동부 집단에서 발전을 위한 마음 수용력의 본질특성이 다른 두 집단들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열등하였기 때문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 상급자들의 허락 하에, 진화하는 생명의 이 열등한 인간-이전(以前)족의 혈통들을 더욱 제한하도록 환경을 조종하였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열등한 이 창조체 집단들의 도태가 우연한 현상이지만, 실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의도적이었다.

Eskimo.

65:2.8 (732.6) The frogs gave rise to the Reptilia, a great animal family which is virtually extinct, but which, before passing out of existence, gave origin to the whole bird family and the numerous orders of mammals.

65:2.9 (732.7) Probably the greatest single leap of all prehuman evolution was executed when the reptile became a bird. The bird types of today — eagles, ducks, pigeons, and ostriches — all descended from the enormous reptiles of long, long ago.

65:2.10 (732.8) The kingdom of reptiles, descended from the frog family, is today represented by four surviving divisions: two nonprogressive, snakes and lizards, together with their cousins, alligators and turtles; one partially progressive, the bird family, and the fourth, the ancestors of mammals and the direct line of descent of the human species. But though long departed, the massiveness of the passing Reptilia found echo in the elephant and mastodon, while their peculiar forms were perpetuated in the leaping kangaroos.

65:2.11 (733.1) Only fourteen phyla have appeared on Urantia, the fishes being the last, and no new classes have developed since birds and mammals.

65:2.12 (733.2) It was from an agile little reptilian dinosaur of carnivorous habits but having a comparatively large brain that the placental mammals *suddenly* sprang. These mammals developed rapidly and in many different ways, not only giving rise to the common modern varieties but also evolving into marine types, such as whales and seals, and into air navigators like the bat family.

65:2.13 (733.3) Man thus evolved from the higher mammals derived principally from the *western implantation* of life in the ancient east-west sheltered seas. The *eastern* and *central* groups of living organisms were early progressing favorably toward the attainment of prehuman levels of animal existence. But as the ages passed, the eastern focus of life emplacement failed to attain a satisfactory level of intelligent prehuman status, having suffered such repeated and irretrievable losses of its highest types of germ plasm that it was forever shorn of the power to rehabilitate human potentialities.

65:2.14 (733.4) Since the quality of the mind capacity for development in this eastern group was so definitely inferior to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the Life Carriers, with the consent of their superiors, so manipulated the environment as further to circumscribe these inferior prehuman strains of evolving life. To all outward appearances the elimination of these inferior groups of creatures was accidental, but in reality it was altogether purposeful.

지성의 진화적 전개는 후기에는, 인간 종족들의 조상인 여우원숭이는 다른 지역들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진보되었다; 그 결과로 그것들은 서부 생명 이식의 장(場)으로부터 베링 연결-육지를 지나 해안선을 따라 남서부 아시아로 이주하도록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진화하였고 중앙 생명 집단의 특정한 혈통들이 첨가됨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특정한 서부 및 중부의 생명 혈통들로부터 나왔지만 중앙의 근동 지역들에 진화하였다.

유란시아에 심어진 생명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빙하기시대까지 진화하였으며, 그때에 사람이 처음 나타났고 행성에서의 다사다난한 삶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빙하기 동안에 지구 위에 원시인의 출현은 단순히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 빙하기의 고됨과 기후의 혹독함은, 엄청난 생존 자질과 함께 인간 존재의 강인한 유형의 생성을 육성하려는 목적에 모든 면에서 수용되었다.

제 3 장. 진화의 육성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많은 기묘함과 명백히 괴상한 사건들을 지금-현재의 인간 마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보기에는 이상한 진화들의 모든 것들에 두루 의도적인 계획이 기능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한 후에는 생명 원형들의 개발에 임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

생명운반자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생명 실험의 발달 과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우연한 환경들을 무엇이든지 그리고 전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식물은 물론 동물의 진화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간섭한 다든지 아니면 그 행위성과 경로를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원시 개구리의 발전을 통하여 진화되었다는 것과, 하나의 개구리 안에 있는 잠재에서 수행된 이 상승하는 혈통은 특정한 상황에서 멸종되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기에 어떤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 인류의 진화가 멈추어질 수도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인간-이전(以前) 즉 발전의 다양한 원형들로 지향될 수 있는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리고 멀리에 위치한 변형하는 생명의 혈통들을 주시하면서 육성하고 있었다. 이 특정한 개구리 조상은 우리가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이었으며, 그 전에 선택하였던 두 생명 혈통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종되고 말았다.

만일 안돈과 폰타가 자손을 낳기 전에 죽었다

65:2.15 (733.5) Later in the evolutionary unfolding of intelligence, the lemur ancestors of the human species were far more advanced in North America than in other regions; and they were therefore led to migrate from the arena of western life implantation over the Bering land bridge and down the coast to southwestern Asia, where they continued to evolve and to benefit by the addition of certain strains of the central life group. Man thus evolved out of certain western and central life strains but in the central to near-eastern regions.

65:2.16 (733.6) In this way the life that was planted on Urantia evolved until the ice age, when man himself first appeared and began his eventful planetary career. And this appearance of primitive man on earth during the ice age was not just an accident; it was by design. The rigors and climatic severity of the glacial era were in every way adapted to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production of a hardy type of human being with tremendous survival endowment.

3. THE FOSTERING OF EVOLUTION

65:3.1 (733.7) It will hardly be possible to explain to the present-day human mind many of the queer and apparently grotesque occurrences of early evolutionary progress. A purposeful plan was functioning throughout all of these seemingly strange evolutions of living things, but we are not allowed arbitrarily to interfer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ife patterns after they have once been set in operation.

65:3.2 (733.8) Life Carriers may employ every possible natural resource and may utilize any and all fortuitous circumstances which will enhance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the life experiment, but we are not permitted mechanically to intervene in, or arbitrarily to manipulate the conduct and course of, either plant or animal evolution.

65:3.3 (733.9) You have been informed that Urantia mortals evolved by way of primitive frog development, and that this ascending strain, carried in potential in a single frog, narrowly escaped extinction on a certain occasion. But it should not be inferred that the evolution of mankind would have been terminated by an accident at this juncture. At that very moment we were observing and fostering no less than one thousand different and remotely situated mutating strains of life which could have been directed into various different patterns of prehuman development. This particular ancestral frog represented our third selection, the two prior life strains having perished in spite of all our efforts toward their conservation.

65:3.4 (734.1) Even the loss of Andon and Fonta

면 인류의 진화가 늦어졌을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주 중단될 수는 없었다. 안돈과 폰타가 출현한 후, 그리고 동물 생명으로부터 변이되는 인간 잠재가 소진되기 전에, 인간 유형으로 어느 정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7,000가지 이상의 유리한 혈통들이 진화되었다. 그리고 이 우수한 혈통들의 대부분은 여러 갈래로 확장하는 인류 종족들에게 나중에 동화되었다.

생물학적 향상자인 물질아들과 딸이 행성에 도착되기 훨씬 전에, 진화하는 동물 종족들의 인간 잠재는 모두 소진되었다. 동물 생명의 이러한 생물학적 지위는 보조 영이 동원되는 세 번째 위상의 현상에 의해서 생명운반자들에게 알려졌으며, 그 세 번째 위상은 인간-이전(以前)족 개별 존재들 속에 있는 돌연변이 잠재에 기원이 되는 모든 동물 생명의 능력이 소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현상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인류는 현재의 인간 혈통들이 가지고 있는 필사자 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이전(以前)족의 근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종족들이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필사 종족들 속에 여전히 내포되어 있는 진화 잠재를 지능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인간의 발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달성하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운반자인 우리들이 생명 혈통들을 육성시키고 보존하려고 행하였던 것을, 진화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우리가 물러난 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진화 운명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통제되지 않는 자연적인 선택과 우연한 생존의 무작위의 기능은 과학적인 지성이 곧 대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진화에 대한 육성을 토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먼 훗날에, 너희가 어느 날 생명운반자 무리단에 배속을 받게 되면, 생명을 운영하고 이식(移植)시키는 계획과 기법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조성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느긋하게 있어라! 너희가 만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만일 너희 마음들이 우주 영역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관리-행정방법의 풍부한 창조력이 있다면, 너희는 너희 연관-동료 그리고 친구 관리-행정자들에게 그것들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제 4 장. 유란시아의 모험

유란시아가 생명-실험 세계로 우리들에게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우리는 네바돈의 생명 설계들을 사타니아에 적용 시킴에 있어서 가능한, 개선하고 변형하기 위한 60번째의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 생

before they had offspring, though delaying human evolution, would not have prevented it. Subsequent to the appearance of Andon and Fonta and before the mutating human potentials of animal life were exhausted, there evolved no less than seven thousand favorable strains which could have achieved some sort of human type of development. And many of these better stocks were subsequently assimilated by the various branches of the expanding human species.

65:3.5 (734.2) Long before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he biologic uplifters, arrive on a planet, the human potentials of the evolving animal species have been exhausted. This biologic status of animal life is disclosed to the Life Carriers by the phenomenon of the third phase of adjutant spirit mobilization, which automatically occurs concomitantly with the exhaustion of the capacity of all animal life to give origin to the mutant potentials of prehuman individuals.

65:3.6 (734.3) Mankind on Urantia must solve its problems of mortal development with the human stocks it has — no more races will evolve from prehuman sources throughout all future time. But this fact does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vastly higher levels of human development through the intelligent fostering of the evolutionary potentials still resident in the mortal races. That which we, the Life Carriers, do toward fostering and conserving the life strains before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man must do for himself after such an event and subsequent to our retirement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evolution. In a general way, man's evolutionary destiny is in his own hands, and scientific intelligence must sooner or later supersede the random functioning of uncontrolled natural selection and chance survival.

65:3.7 (734.4) And in discussing the fostering of evolution, it would not be amiss to point out that, in the long future ahead, when you may sometime be attached to a corps of Life Carriers, you will have abundant and ample opportunity to offer suggestions and make any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plans and technique of life management and transplantation. Be patient! If you have good ideas, if your minds are fertile with better methods of administration for any part of the universal domains, you are certainly going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m to your associates and fellow administrators in the ages to come.

4. THE URANTIA ADVENTURE

65:4.1 (734.5) Do not overlook the fact that Urantia was assigned to us as a life-experiment world. On this planet we made our sixtieth attempt to modify and, if possible, improve the Satania adaptation of the Nebadon life designs, and it is of record that

명 원형들들에 대한 유익한 변형을 많이 성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세히 말한다면,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열심히 일하였고, 모든 미래의 시간에 두루 네바돈 전체에게 봉사하여 이바지할 28가지 이상의 생명 변형체들을 만족스럽게 실증하였다.

그러나 전혀 시도된 적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시도되었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생명 조성은 결코 실험적이 아니다. 생명의 진화는 항상 진보적이고 차별적이며 변화적인 하나의 기법이지만, 우발적인 의미에서 우연이거나 통제되지 않거나 온통 실험적인 경우는 전혀 없다.

인간 생명의 많은 면들은, 필사자 실존의 현상이 지능으로 계획되었으며, 유기체적 진화가 단순한 조화우주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세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인접해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상처 치료 과정을 촉진시키는 특정한 물질들을 즉시 분비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정상적인 세포들과 상처받은 세포들은 증식을 시작한다.—그것들은 사고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어떤 동료 세포들을 대체하도록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실제로 시작한다.

상처 치료와 세포 번식 작용에 관련된 이 화학적 작용과 반응은, 생명운반자들이 100,000 가지가 넘게 가능한 화학적 반응과 생물학적 반향(反響)의 위상과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공식을 선택하였음을 나타낸다. 생명운반자들이 유란시아 생명 실험을 위하여 이 처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의 실험실 안에서 500,000번 이상의 특별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치료하는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들은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정한 치명적인 질병들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이 유란시아에 조성된 이후로, 생명운반자들은, 사타니아에 있는 다른 세계들에 소개된 것과 같이, 이 치료 기법을 계속 개선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더욱 감소시키고 연관된 정상 세포들의 증식 수용능력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통제를 잘 제공하였다.

유란시아에서의 생명 실험에는 많은 독특한 특성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특기할만한 에피소드들은, 여섯 가지 유색 인종들이 진화 이전에 안돈의-종족의 출현과, 그 후에 하나의 가족 안에서 산각 돌연변이체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에서 여섯 개의 유색 인종들이 동일한 가계로부터 나타나게 된 최초의 세계였다. 보통으로는 그들은 인간-이전(以前)족의 동물 계통에서 독립된 변이를 통해 여러 가지 혈통들로 나타나며,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 종류씩 그리고

we achieved numerous beneficial modifications of the standard life patterns. To be specific, on Urantia we worked out and have satisfactorily demonstrated not less than twenty-eight features of life modification which will be of service to all Nebadon throughout all future time.

65:4.2 (735.1) But the establishment of life on no world is ever experimental in the sense that something untried and unknown is attempted. The evolution of life is a technique ever progressive, differential, and variable, but never haphazard, uncontrolled, nor wholly experimental, in the accidental sense.

65:4.3 (735.2) Many features of human life afford abundant evidence that the phenomenon of mortal existence was intelligently planned, that organic evolution is not a mere cosmic accident. When a living cell is injured, it possesses the ability to elaborate certain chemical substances which are empowered so to stimulate and activate the neighboring normal cells that they immediately begin the secretion of certain substances which facilitate healing processes in the wound; and at the same time these normal and uninjured cells begin to proliferate — they actually start to work creating new cells to replace any fellow cells which may have been destroyed by the accident.

65:4.4 (735.3) This chemical action and reaction concerned in wound healing and cell reproduction represents the choice of the Life Carriers of a formula embracing over one hundred thousand phases and features of possible chemical reactions and biologic repercussions. More than half a million specific experiments were made by the Life Carriers in their laboratories before they finally settled upon this formula for the Urantia life experiment.

65:4.5 (735.4) When Urantia scientists know more of these healing chemicals, they will become more efficient in the treatment of injuries, and indirectly they will know more about controlling certain serious diseases.

65:4.6 (735.5) Since life was established on Urantia, the Life Carriers have improved this healing technique as it has been introduced on another Satania world, in that it affords more pain relief and exercises better control over the proliferation capacity of the associated normal cells.

65:4.7 (735.6) There were many unique features of the Urantia life experiment, but the two outstanding episodes were the appearance of the Andonic race prior to the evolution of the six colored peoples and the later simultaneous appearance of the Sangik mutants in a single family. Urantia is the first world in Satania where the six colored races sprang from the same human family. They ordinarily arise in diversified strains from independent mutations within the prehuman

적색 인종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색 인종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땅 위에 나타난다.

특기할만하게 변동된 또 하나의 과정은, 행성 영주가 늦게 도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주는 의지 개발 시점에 행성에 나타난다; 그러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었었다면, 칼리가스티아가 거의 500,000년 이후에 여섯 가지의 산각 종족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도착하는 대신, 안돈과 폰타가 살아있을 때 유란시아에 왔었어야 했다.

통상적으로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는 안돈과 폰타의 출현 시에, 또는 그 뒤에 언젠가, 생명운반자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행성영주가 허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변형 행성으로 유란시아는 지정되었음으로, 12명으로 구성된 멜기세덱 관찰자들이 행성영주가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행성의 감시자들로 그리고 생명운반자들에게 충고자들로 파견되도록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다. 안돈과 폰타의 시대에 도착된 이 멜기세덱들은 생각 조절자들이 그들의 필사자 마음에 내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었다.

유란시아에서 사타니아 생명 원형틀들을 증진시키려는 생명운반자들의 노력은, 길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형태의 수많은 과도기적 생명을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소득들은, 표준 생명 설계들의 유란시아 변형들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유란시아의 진화적 생명 안에서 의지의 이른 현시활동을 산출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의도였으며, 우리는 성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지는 유색 인종들이 오랫동안 실존했었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 적색 인종의 우월한 유형에서 우선 나타난다. 너희가 사는 세계는, 사타니아에서,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 유형의 의지가 나타난 유일한 행성이다.

그러나 인간 종족의 포유류 조상들에게 최종적으로 발생시킨 유전 인자들의 조합과 관계적-연합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들이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그리고 비교적 쓸모없는 유전 인자들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의 많은 것들이, 너희가 지구의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노력할 때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제한된 인간적 견해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이 될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제 5 장. 생명-진화 변천

유란시아에서 지능적 생명의 변경을 위한 우

animal stock and usually appear on earth one at a time and successively over long periods of time, beginning with the red man and passing on down through the colors to indigo.

65:4.8 (735.7) Another outstanding variation of procedure was the lat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As a rule, the prince appears on a planet about the time of will development; and if such a plan had been followed, Caligastia might have come to Urantia even during the lifetimes of Andon and Fonta instead of almos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later, simultaneously with the appearance of the six Sangik races.

65:4.9 (735.8) On an ordinary inhabited world a Planetary Prince would have been granted on the request of the Life Carriers at, or sometime after, the appearance of Andon and Fonta. But Urantia having been designated a life-modification planet, it was by preagreement that the Melchizedek observers, twelve in number, were sent as advisers to the Life Carriers and as overseers of the planet until the subsequent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hese Melchizedeks came at the time Andon and Fonta made the decisions which enabled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ir mortal minds.

65:4.10 (736.1) On Urantia the endeavors of the Life Carriers to improve the Satania life patterns necessarily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many apparently useless forms of transition life. But the gains already accrued are sufficient to justify the Urantia modifications of the standard life designs.

65:4.11 (736.2) It was our intention to produce an early manifestation of will in the evolutionary life of Urantia, and we succeeded. Ordinarily, will does not emerge until the colored races have long been in existence, usually first appearing among the superior types of the red man. Your world is the only planet in Satania where the human type of will has appeared in a precolored race.

65:4.12 (736.3) But in our effort to provide for that combination and association of inheritance factors which finally gave rise to the mammalian ancestors of the human race, we we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permitting hundreds and thousands of other and comparatively useless combinations and associations of inheritance factors to take place. Many of these seemingly strange by-products of our efforts are certain to meet your gaze as you dig back into the planetary past, and I can well understand how puzzling some of these things must be to the limited human viewpoint.

5. LIFE-EVOLUTION VICISSITUDES

65:5.1 (736.4) It was a source of regret to the Life

리들의 특별한 노력이, 우리의 통제 한계를 벗어난 비극적인 과오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아담의-불이행에 의해서 심하게 방해 받은 것은 생명운반자들에게 유감스러운 일들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모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실망은, 예기치 못한 정도로 그토록 광범위하게 특정한 원시적 식물 생명이 엽록소 이전 차원의 기생 박테리아로의 퇴화에서 기인되었다. 식물 생명 진화의 이 생겨나는 것은 고등의 포유동물들에게 많은 괴로운 질병들을 유발시켰으며, 특별히 더욱 취약한 인간 종족들에게 심하였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아담의-생명 원형질의 혼합이 그 결과로 나타난 혼혈 인종의 저항 힘이 보강되어, 식물 형태 유기체에 의해 발생된 모든 질병에 실천적으로 면역되도록 만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함된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무시했었다. 그러나 아담의-불이행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망들은 실망으로 되었다.

우란시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세계를 포함하여, 우주들의 우주는 단순히 우리의 동의에 부합하거나 또는 단순히 우리의 편리에 맞추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과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운영되는 일은 결코 없다. 우주를 운영하는 책임을 갖는 현명하고도 만능이신 존재들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운반자들이, 필사 마음들 편에서, 기다리는 인내심을 동원하여 지혜의 원칙과 힘의 통치 그리고 진보의 행진에 진심으로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시련에 대한 특별한 보상, 미가엘이 우란시아에 중여되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려 사항에 상관없이, 이 행성의 후기(後期) 천상 감독자들은 인간 종족의 궁극적 진화의 승리와 그리고 우리의 기원적 계획과 생명 원형질들의 생겨나는 입증에 완벽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제 6 장. 생명의 진화적인 기법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정확한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면 반드시 다른 쪽의 변화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필사 사람이 원형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똑같은 종류의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화학자가 죽은 원형질의 화학적 성질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물질적 조직이나 역동적 행태는 식별할 수 없다. 과학자들이 생명의 비밀에 계속 가까이 접근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형질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원형질은 살

Carriers that our special efforts to modify intelligent life on Urantia should have been so handicapped by tragic perversions beyond our control: the Caligastia betrayal and the Adamic default.

65:5.2 (736.5) But throughout all of this biologic adventure our greatest disappointment grew out of the reversion of certain primitive plant life to the prechlorophyll levels of parasitic bacteria on such an extensive and unexpected scale. This eventuality in plant-life evolution caused many distressful diseases in the higher mammals, particularly in the more vulnerable human species. When we were confronted with this perplexing situation, we somewhat discounted the difficulties involved because we knew that the subsequent admixture of the Adamic life plasm would so reinforce the resisting powers of the resulting blended race as to make it practically immune to all diseases produced by the vegetable type of organism. But our hopes were doomed to disappointment owing to the misfortune of the Adamic default.

65:5.3 (736.6) The universe of universes, including this small world called Urantia, is not being managed merely to meet our approval nor just to suit our convenience, much less to gratify our whims and satisfy our curiosity. The wise and all-powerful beings who are responsible for universe management undoubtedly know exactly what they are about; and so it becomes Life Carriers and behooves mortal minds to enlist in patient waiting and hearty co-operation with the rule of wisdom, the reign of power, and the march of progress.

65:5.4 (736.7) There are, of course, certain compensations for tribulation, such as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But irrespective of all such considerations, the later celestial supervisors of this planet express complete confidence in the ultimate evolutionary triumph of the human race and in the eventual vindication of our original plans and life patterns.

6. EVOLUTIONARY TECHNIQUES OF LIFE

65:6.1 (737.1) It is impossible accurately to determine, simultaneously, the exact location and the velocity of a moving object; any attempt at measurement of either inevitably involves change in the other. The same sort of a paradox confronts mortal man when he undertakes the chemical analysis of protoplasm. The chemist can elucidate the chemistry of *dead* protoplasm, but he cannot discern either the physical organization or the dynamic performance of *living* protoplasm. Ever will the scientist come nearer and nearer the secrets of life, but never will he find them and for

아있는 원형질과 똑같은 무게를 갖지만, 그 둘은 똑같지 않다.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들 속에는 적응해 나가는 기원적인 자질이 들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세포 속에, 모든 살아있는 원형질—물질적 또는 영적—에는 환경적 조절과 유기체적 적응 그리고 증강된 생명 실현에서의 언제까지나-증가하는 완전의 달성을 위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들의 이러한 끝없는 노력들은 그들 내부에 완전을 위한 타고난 투쟁심이 실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식물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엽록소-생성 능력이었으며, 두 번째로 큰 진전은 홀씨가 복잡한 씨앗으로 진화한 것이었다. 홀씨는 생식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씨앗에서 선천적인 다양성과 융통성의 잠재는 결여되어 있다.

보다 높은 유형의 동물들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에피소드 중의 하나는, 순환하는 혈액 세포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를 운반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능력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리고 적혈구 세포의 이러한 작용은 진화하는 유기체들이 변화하고 바뀌는 환경에 자기들의 기능을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람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동물들은 적혈구 세포에 들어 있는 철분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의 세포 조직체 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그것들은 살아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준다. 그러나 다른 금속 성분들도 똑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오징어 속에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 동(銅)을 사용하며, 멧게는 바나듐을 이용한다.

그러한 연속적인 생물학적 조절은, 유란시아의 보다 높은 포유류들의 이빨의 진화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람의 먼 조상들에서 36개의 이빨을 달성하였고, 여명기의 사람과 가까운 친척들에서는 32개의 방향으로 적응하는 채 조절을 시작했다. 이제 인간 종들은 28개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고 있다. 진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이 행성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적응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신비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조절은 순전히 화학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 존재의 혈액 흐름 속에는, 12개의 내분비선에서 분비된 호르몬들 사이에서의 15,000,000개 이상의 화학적 반응 가능성들이 어떤 순간이든지 존재하고 있다.

보다 열등한 형태의 식물 생명은 물질적, 화학적, 전기적 환경에 전적으로 응답한다. 그러나 생명의 등급이 상승될 때, 일곱 보조 영들의 마음 사명활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작동하게 되며, 마음은 점점 더 조절적, 창조적, 조화-협동적 그리고 지배적이 되어간다. 공기와 물과 땅에 자신을 적응

no other reason than that he must kill protoplasm in order to analyze it. Dead protoplasm weighs the same as living protoplasm, but it is not the same.

65:6.2 (737.2) There is original endowment of adaptation in living things and beings. In every *living* plant or animal cell, in every *living* organism — material or spiritual — there is an insatiable craving for the attainment of ever-increasing perfection of environmental adjustment, organismal adaptation, and augmented life realization. These interminable efforts of all living things evidence the existence within them of an innate striving for perfection.

65:6.3 (737.3) The most important step in plant evolution was the development of chlorophyll-making ability, and the second greatest advance was the evolution of the spore into the complex seed. The spore is most efficient as a reproductive agent, but it lacks the potentials of variety and versatility inherent in the seed.

65:6.4 (737.4) One of the most serviceable and complex episodes in the evolution of the higher types of animals consi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y of the iron in the circulating blood cells to perform in the double role of oxygen carrier and carbon dioxide remover. And this performance of the red blood cells illustrates how evolving organisms are able to adapt their functions to varying or changing environment. The higher animals, including man, oxygenate their tissues by the action of the iron of the red blood cells, which carries oxygen to the living cells and just as efficiently removes the carbon dioxide. But other metals can be made to serve the same purpose. The cuttlefish employs copper for this function, and the sea squirt utilizes vanadium.

65:6.5 (737.5) The continuation of such biologic adjustments is illustrated by the evolution of teeth in the higher Urantia mammals; these attained to thirty-six in man's remote ancestors, and then began an adaptative readjustment toward thirty-two in the dawn man and his near relatives. Now the human species is slowly gravitating toward twenty-eight. The process of evolution is still actively and adaptatively in progress on this planet.

65:6.6 (737.6) But many seemingly mysterious adjustments of living organisms are purely chemical, wholly physical. At any moment of time, in the blood stream of any human being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upward of 15,000,000 chemical reactions between the hormone output of a dozen ductless glands.

65:6.7 (737.7) The lower forms of plant life are wholly responsive to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environment. But as the scale of life ascends, one by one the mind ministries of the seven adjutant spirits become operative, and the mind becomes increasingly adjustive, creative, co-ordinative, and

시키는 동물들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자질이 아니라, 초(超)물리적 조절이다.

초기 바다의 원시 시대 원형질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진화되어 나타났는지를 물리학이나 화학이 단독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학습의 능력, 환경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은 마음의 자질이다. 물리적 법칙들은 훈련에 반응하지 않는다; 불변적이고 항상 일정하다. 화학적 반응들은 교육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고 믿을 수 있다. 분별불가 절대자가 현존에서 벗어나, 전기적 화학적 반응들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체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복되는 충동에 응답하는, 행동의 반응적 습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지능이전의 유기체들도 환경적 자극에 반응을 하지만, 마음 사명활동에 반응적인 그 유기체들은 환경 자체를 조절하고 변경시킨다.

물리적 뇌는 그것과 연결된 신경 체계와 함께, 개인성의 발전하는 마음이 영 접수성을 위한 어떤 타고난 수용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적 진보와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를 담아 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마음 사명활동에 응답하는 타고난 수용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진화는, 일곱 보조 영들과 그들의 초물질적 연관-동료들의 마음 사명활동에 의존된다.

제 7 장. 진화하는 마음 차원

일곱 보조 마음-영들은 지역우주의 보다 열등한 지능 실존들에게 다재다능한 마음 사명활동자들이다. 이 마음 체제는 지역우주 본부들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세계로부터 봉사되지만, 보다 낮은-마음 기능의 영향력 있는 지도가 체계 중심지들로부터 있다.

진화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곱 보조 존재들에게 많이, 매우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운반자들의 권역인 물리적 진화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 자질과, 예정되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드러나는 생명운반자들의 선천적 체제와의 완전한 집대성활동은,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물질과 연관됨에 따라 마음의 자연적 반응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에 너희가 때때로 다소 갈팡질팡은 하지만, 자연의 손길과 자연적 과정의 결과 이외의, 마음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에 필사자의 무능력을 초래한다. 그리고 만일 유란시아가 기원적 계획과 좀 더 일치되도록 운영되었다면, 너희는 마음 현상에 보다 덜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dominative. The ability of animals to adapt themselves to air, water, and land is not a supernatural endowment, but it is a superphysical adjustment.

65:6.8 (738.1) Physics and chemistry alone cannot explain how a human being evolved out of the primeval protoplasm of the early seas. The ability to learn, memory and differential response to environment, is the endowment of mind. The laws of physics are not responsive to training; they are immutable and unchanging. The reactions of chemistry are not modified by education; they are uniform and dependable. Aside from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electrical and chemical reactions are predictable. But mind can profit from experience, can learn from reactive habits of behavior in response to repetition of stimuli.

65:6.9 (738.2) Preintelligent organisms react to environmental stimuli, but those organisms which are reactive to mind ministry can adjust and manipulate the environment itself.

65:6.10 (738.3) The physical brain with its associated nervous system possesses innate capacity for response to mind ministry just as the developing mind of a personality possesses a certain innate capacity for spirit receptivity and therefore contains the potentials of spiritual progress and attainment. Intellectu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evolution are dependent on the mind ministry of the seven adjutant spirits and their superphysical associates.

7. EVOLUTIONARY MIND LEVELS

65:7.1 (738.4)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re the versatile mind ministers to the lower intelligent existences of a local universe. This order of mind is ministered from the local universe headquarters or from some world connected therewith, but there is influential direction of lower-mind function from the system capitals.

65:7.2 (738.5) On an evolutionary world much, very much, depends on the work of these seven adjutants. But they are mind ministers; they are not concerned in physical evolution, the domain of the Life Carriers. Nevertheless, the perfect integration of these spirit endowments with the ordained and natural procedure of the unfolding and inherent regime of the Life Carriers is responsible for the mortal inability to discern, in the phenomenon of mind, aught but the hand of nature and the outworking of natural processes, albeit you are occasionally somewhat perplexed in explaining all of everything connected with the natural reactions of mind as it is associated with matter. And if Urantia were operating 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lans, you would observe even less to arrest your attention in the phenomenon of

일곱 보조 영들은 실존개체라기보다는 순환 회로와 비슷하며, 일상적인 세계들에서 그들은 지역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다른 보조와 순환회로를 이루고 있다. 어쨌든, 생명-실험 행성들에서, 그것들은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생명 원형체들의 독특한 본성 때문에, 보다 낮은 보조들은, 진화적 유기체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더 표준화된 유형의 생명 자질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체험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보조 영들은, 그들이 유란시아에 있었던 경우보다, 평균적인 진화 세계에서 동물적인 발달의 전진 단계들과 훨씬 더 잘 동조된다. 네바돈의 우주 전반에 걸친 그들의 모든 기능들에서 그들이 가졌었던 것들 중에 오직 한 가지 예외로, 유란시아 유기체들의 진화적인 마음들과의 접촉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이 세계에서는 많은 형태의 임계현상들—기계적이고 학습 불가능한 그리고 기계적이지 않고 학습 가능한 유형의 유기체적 반응들의 뒤죽박죽 배합—이 발전되었다.

일곱 보조 영들은 유기체적 환경 반응의 순전히 기계적인 계층들과는 접촉을 이루지 않는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지성이전의 반응들은 순전히 힘의 중심지, 물리통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의 에너지 권역에 속한다.

체험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의 잠재성을 획득하는 것은 보조 영들의 기능이 시작을 표시하며, 그들은 원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들의 가장 하등의 마음들로부터 인간 존재들의, 진화단계에서 가장 높은 유형에 이르기까지 기능한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간 신비스러운 행동으로 그리고 미완성적으로 납득되는, 물질적 환경에 대한 마음의 신속한 반응을 위한 근원과 원형체이다. 이러한 신실하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영향들은, 동물적 마음이 인간 차원의 영 접수성을 달성하기 전에, 그들의 예비적인 봉사를 오랫동안 수행해야만 한다.

보조 존재들은 여섯 번째 위상, 경배의 영의 차원까지, 체험하는 마음의 진화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기능한다. 이 차원에는 필연적으로 사명활동이 겹치는 일—더욱 높은 차원이 아래로 뻗어 내려와서, 뒤이어 발생하는 발전의 향상된 차원의 달성을 예상하고 있는, 낮은 차원과 조화-협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추가적인 영 사명활동은 일곱 번째의 그리고 마지막 보조자인, 지혜의 영의 활동을 동반한다. 영 세계에서의 사명활동에 두루, 개별존재는 결코 영 협동에서의 갑작스러운 전환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이들 변화는 항상 점진적이고 그리고 상호적이다.

mind.

65.7.3 (738.6) The seven adjutant spirits are more circuitlike than entitylike, and on ordinary worlds they are encircuited with other adjutant functionings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On life-experiment planets, however, they are relatively isolated. And on Urantia, owing to the unique nature of the life patterns, the lower adjutants experienced far more difficulty in contacting with the evolutionary organisms than would have been the case in a more standardized type of life endowment.

65.7.4 (738.7) Again, on an average evolutionary world the seven adjutant spirits are far better synchronized with the advancing stages of animal development than they were on Urantia. With but a single exception, the adjutants experienced the greatest difficulty in contacting with the evolving minds of Urantia organisms that they had ever had in all their functioning throughout the universe of Nebadon. On this world there developed many forms of border phenomena — confusional combinations of the mechanical-nonteachable and the nonmechanical-teachable types of organismal response.

65.7.5 (739.1) The seven adjutant spirits do not make contact with the purely mechanical orders of organismal environmental response. Such preintelligent responses of living organisms pertain purely to the energy domains of the power centers,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ir associates.

65.7.6 (739.2) The acquisition of the potential of the 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 marks the beginning of the functioning of the adjutant spirits, and they function from the lowliest minds of primitive and invisible existences up to the highest types in the evolutionary scale of human beings. They are the source and pattern for the otherwise more or less mysterious behavior and incompletely understood quick reactions of mind to the material environment. Long must these faithful and always dependable influences carry forward their preliminary ministry before the animal mind attains the human levels of spirit receptivity.

65.7.7 (739.3) The adjutants function exclusively in the evolution of experiencing mind up to the level of the sixth phase, the spirit of worship. At this level there occurs that inevitable overlapping of ministry — the phenomenon of the higher reaching down to co-ordinate with the lower in anticipation of subsequent attainment of advanced levels of development. And still additional spirit ministry accompanies the action of the seventh and last adjutant, the spirit of wisdom. Throughout the ministry of the spirit world the individual never experiences abrupt transitions of spirit co-operation; always are these changes gradual and reciprocal.

환경으로 인한 자극에 반응하는 물리적(전기 화학적) 그리고 정신적 응답의 권역은 항상 차별 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모두 영적 활동들과는 동떨어진 현상으로 인지되어야만 한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 중력 권역들은, 그들의 밀접한 상호관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조화우주 실체 영역들이다.

제 8 장. 시간과 공간에서의 진화

시간과 공간은 분해 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 타고난 관계적-연합이다. 특정한 공간 조건 의 현존 안에서, 시간의 지연은 필연적이다.

만일 생명 발달의 진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곤혹스러움을 일으킨다면, 나는, 우리가 행성이 허용하는 물리적 변형들보다 그 어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펼치도록 생명 과정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싶다. 우리는 행성의 자연적 물리적 발전을 기다려야만 한다; 지질학적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만일 물리적인 조건들만 허용한다면, 우리는 백만 년보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생명 진화가 완성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파라다이스의 최극 통치자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으며, 파라다이스에는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다.

시간 측정을 위한 개별존재의 척도는 그의 삶의 길이이다. 모든 창조체들은 그렇게 시간으로 필요조건이 한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를 너무-오래-끄는 과정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명이, 일시적인 실존으로 제한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진화가 그토록 질질 끄는 활동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 파라다이스에서는, 이것들이 무한의 마음과 영원의 활동 안에서 모두 현재이다.

마음 진화는 천천히 나아가는 물리적 조건들의 발전에 달려있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영적 진보도 정신적 확대에 달려있고, 지적인 지연으로 어김없이 늦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진화가 교육이나 문화 또는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혼은 정신적 문화에 상관없이 진화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정신적 수용능력과 욕망-생존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언제까지-증가하는 완전을 성취하려는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럴 수 없다. 비록 생존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데에 달려있지는 않겠지만, 진보는 아주 확실하게 그러한 것에 달려있다.

조화우주의 진화 실험실에서 마음은 항상 물질을 지배하며, 영은 언제까지나 마음과 상관관계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질들이 동조를 이루고 조화-협동을 이루는데 실패하면, 시간의 연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개별존재가 실제로 하느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여 그와 같이 되기

65:7.8 (739.4) Always should the domains of the physical (electrochemical) and the mental response to environmental stimuli be differentiated, and in turn must they all be recognized as phenomena apart from spiritual activities. The domains of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gravity are distinct realms of cosmic reality, notwithstanding their intimate interrelations.

8. EVOLUTION IN TIME AND SPACE

65:8.1 (739.5) Time and space are indissolubly linked; there is an innate association. The delays of time are inevitable in the presence of certain space conditions.

65:8.2 (739.6) If spending so much time in effecting the evolutionary changes of life development occasions perplexity, I would say that we cannot time the life processes to unfold any faster than the physical metamorphoses of a planet will permit. We must wait upon the natural, physical development of a planet; we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geologic evolution. If the physical conditions would allow, we could arrange for the completed evolution of life in considerably less than one million years. But we are 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Rulers of Paradise, and time is nonexistent on Paradise.

65:8.3 (739.7) The individual's yardstick for time measurement is the length of his life. All creatures are thus time conditioned, and therefore do they regard evolution as being a long-drawn-out process. To those of us whose life span is not limited by a temporal existence, evolution does not seem to be such a protracted transaction. On Paradise, where time is nonexistent, these things are all *present* in the mind of Infinity and the acts of Eternity.

65:8.4 (739.8) As mind evolution is dependent on, and delayed by, the slow development of physical conditions, so is spiritual progress dependent on mental expansion and unfailingly delayed by intellectual retardation. But this does not mean that spiritual evolution is dependent on education, culture, or wisdom. The soul may evolve regardless of mental culture but not in the absence of mental capacity and desire — the choice of survival and the decision to achieve ever-increasing perfection —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lthough survival may not depend on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nd wisdom, progression most certainly does.

65:8.5 (740.1) In the cosmic evolutionary laboratories mind is always dominant over matter, and spirit is ever correlated with mind. Failure of these diverse endowments to synchronize and co-ordinate may cause time delays, but if the individual really knows God and desires to find him and become like him,

를 갈망한다면, 시간의 장애와 상관없이 생존이 보장된다. 물리적 지위가 마음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신적 왜곡이 영적 달성을 지체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들 장애물 중 그 어떤 것도 온통-혼에서 나오는 의지의 선택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물리적 조건들이 무르익었을 때, 갑작스런 정신적 진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음 상태가 순조롭고 좋을 때, 갑작스런 영적 변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영적 가치들이 적절한 인지를 받아들일 때, 그러면 조화우주 의미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개인성은 점점 더 시간의 장애들로부터 풀려나며, 공간의 한계로부터 해방된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운반자에 의해서 후원됨]

then survival is assured regardless of the handicaps of time. Physical status may handicap mind, and mental perversity may delay spiritual attainment, but none of these obstacles can defeat the whole-souled choice of will.

65:8.6 (740.2) When physical conditions are ripe, *sudden* mental evolutions may take place; when mind status is propitious, *sudden* spiritual transformations may occur; when spiritual values receive proper recognition, then cosmic meanings become discernible, and increasingly the personality is released from the handicaps of time and delivered from the limitations of space.

65:8.7 (740.3) [Sponsored by a Life Carrier of Nebadon resident on Urantia.]

제 66 편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 065

유란시아 책

067 ⇨

부 III. 유란시아의 역사

제 66 편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섹션

소개

제 1 장. 칼리가스티아 영주

제 2 장. 영주의 참모진

제 3 장. 달라마시아—영주의 도시

제 4 장. 100인의 초기 시절

제 5 장. 100인 무리의 조직

제 6 장. 영주의 통치

제 7 장. 달라마시아의 생활

제 8 장. 칼리가스티아의 불행

PAPER 66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Prince Caligastia

2. The Prince's Staff

3. Dalamatia — The City of the Prince

4. Early Days of the One Hundred

5. Organization of the One Hundred

6. The Prince's Reign

7. Life in Dalamatia

8. Misfortunes of Caligastia

소개

일반적인 세계에 라노난텍 아들이 도래하였다는 사실은 의지, 영원한 생존의 행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원시인의 마음속에 개발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 행성영주가 인간 의지의 출현으로부터 거의 500,000년 이후에 도착하였다.

약 500,000년 전에 그리고 여섯 가지의 유색 인종 또는 산각 종족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 영주인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영주가 도착하였을 때 지구 위에는 약 5억 명의 원시 인간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영주의 본부는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고 세계 인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INTRODUCTION

66:0.1 (741.1) THE advent of a Lanonandek Son on an average world signifies that will, the ability to choose the path of eternal survival, has developed in the mind of primitive man. But on Urantia the Planetary Prince arrived almost half a million years after the appearance of human will.

66:0.2 (741.2) About five hundred thousand years ago and concurrent with the appearance of the six colored or Sangik races, Caligastia, the Planetary Prince, arrived on Urantia. There were almost one-half billion primitive human beings on earth at the time of the Prince's arrival, and they were well scattered over Europe, Asia, and Africa. The Prince's headquarters, established in Mesopotamia, was at about the center of world population.

제 1 장. 칼리가스티아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라노난텍 아들이었고, 2차 계층에서 9,344번이었다. 그는 대개 지역우주의

1. PRINCE CALIGASTIA

66:1.1 (741.3) Caligastia was a Lanonandek Son, number 9,344 of the secondary order. He was

관련사들을 관리-행정하는 체험을 하였고, 후대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사타니아 지역 체계를 운영 하는 일을 하였다.

루시퍼가 사타니아를 통치하기 전까지는, 칼리가스티아가 예루셈에 있는 생명운반자 충고자 협의회에 배정되어 있었다. 루시퍼는 칼리가스티아의 지위를 자신의 직속 참모 위치까지 높여주었고, 그는 명예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5개의 계속적인 과업을 훌륭하게 이행하였다.

칼리가스티아는 매우 일찍부터 행성영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별자리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상정될 때마다, 별자리 아버지들의 찬성을 계속적으로 얻지 못하였다. 칼리가스티아는 10진(十進)법 소수의 세계 즉 생명-변형의 세계에 행성 통치자로 보내지기를 특별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종적으로 유란시아에 배정되기 전에 그의 청원은 여러 차례 기각되었다.

칼리가스티아는 어떤 특징적 불안감이 어떤 사소한 문제들 속에 이미 내려진 명령을 거부하려는 경향과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원되었고 머무르고 있는 그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기록을 가지고 세계 지배에 대한 자신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예루셈으로부터 나아갔었다.

영리한 칼리가스티아가 그 체계의 수도에서 떠나갈 때, 나는 예루셈에 있었다. 행성들에 있는 어떤 영주도, 세계 통치 생애에서 칼리가스티아가 500,000년 전의 그 중대한 날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예비 체험이나 더 훌륭한 성공 가능성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지역우주에 알리기 위해 서술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훌륭한 이 라노난덱이 행성 보호관리자들의 신뢰를 그토록 신속하게 배반하고, 우주적인 아들관계의 고귀한 계급에 붙여지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그토록 끔찍하게 더럽히리라고는, 한 순간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실제로 유란시아가, 세계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숙련되고 총명하고 기원적인 마음을 갖추도록 예정됨으로써, 전체 사타니아 행성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5개 내지 6개 행성에 포함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 때 칼리가스티아가 음흉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그 당시에 개인성의 교활한 자부심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 2 장. 영주의 참모진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파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보좌관 무리단과 행정 조력자들을 대동하였다.

이 집단의 수뇌부에는 행성영주의 연관-동료이자-보좌관인 달리가스티아가 있었다. 달리가스

experienc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the local universe in general and, during later ages, with the management of the local system of Satania in particular.

66:1.2 (741.4) Prior to the reign of Lucifer in Satania, Caligastia had been attached to the council of the Life Carrier advisers on Jerusalem. Lucifer elevated Caligastia to a position on his personal staff, and he acceptably filled five successive assignments of honor and trust.

66:1.3 (741.5) Caligastia very early sought a commission as Planetary Prince, but repeatedly, when his request came up for approval in the constellation councils, it would fail to receive the assent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Caligastia seemed especially desirous of being sent as planetary ruler to a decimal or life-modification world. His petition had several times been disapproved before he was finally assigned to Urantia.

66:1.4 (741.6) Caligastia went forth from Jerusalem to his trust of world dominion with an enviable record of loyalty and devotion to the welfare of the universe of his origin and sojourn, notwithstanding a certain characteristic restlessness coupled with a tendency to disagree with the established order in certain minor matters.

66:1.5 (741.7) I was present on Jerusalem when the brilliant Caligastia departed from the system capital. No prince of the planets ever embarked upon a career of world rulership with a richer preparatory experience or with better prospects than did Caligastia on that eventful day one-half million years ago. One thing is certain: As I executed my assignment of putting the narrative of that event on the broadcasts of the local universe, I never for one moment entertained even in the slightest degree any idea that this noble Lanonandek would so shortly betray his sacred trust of planetary custody and so horribly stain the fair name of his exalted order of universe sonship. I really regarded Urantia as being among the five or six most fortunate planets in all Satania in that it was to have such an experienced, brilliant, and original mind at the helm of world affairs. I did not then comprehend that Caligastia was insidiously falling in love with himself; I did not then so fully understand the subtleties of personality pride.

2. THE PRINCE'S STAFF

66:2.1 (742.1)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as not sent out on his mission alone but was accompanied by the usual corps of assistants and administrative helpers.

66:2.2 (742.2) At the head of this group was Daligastia, the associate-assistant of the

티아도 역시 2차 라노난텍 아들이었고, 그 계층에서 319,407번이었다. 그는 칼리가스티아의 동료로 배정되었을 때 하나의 보좌관의 위치에 있었다.

그 행성 참모진 속에는 수많은 천사 협력자들이 있었고, 인간 종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정된 다른 천상의 존재들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희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집단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영주의 참모들 중에서 육체의 모습을 갖는 구성원들일 것이다—때로는 칼리가스티아 100인이라고 불린다.

영주의 참모들 중에서 재(再)물질화된 100명의 이 구성원들은, 유란시아 모험을 착수하는데 나서기로 자원한 785,000명의 상승하는 예루셈 시민들 중에서 칼리가스티아가 선택한 존재들이었다. 선택된 100명 각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자들이었고, 유란시아에서 온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루셈의 시민인 이 자원봉사자들은 운송 세라핌천사에 의해서 그 체계 수도로부터 직접 유란시아로 옮겨졌고, 도착과 동시에 그들은 행성 특별 임무의 이원적(二元的) 본질을 갖는, 글자 그대로의 살과 피로 구성된 육체를 가졌지만 또한 한편 체계의 생명 순환회로에 조율되어 있는, 개인성 형태가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다.

이들 100명의 예루셈 시민들이 도착되기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두 명의 감독하는 생명운반자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영주의 참모의 유형 요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투사되는 물질 몸체 속으로, 안돈과 폰타 줄기 중에서 선택된 100명의 생존자들의 생명 원형질이 이식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예루셈과 에덴시아에 탄원하였다. 그 요청은 예루셈에서 승락되었고 에덴시아에서 승인되었다.

그에 따라서, 안돈과 폰타의 후손 중에서, 그 독특한 인종에서의 가장 좋은 혈통들의 생존자를 대표하는,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들이 생명운반자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한 두 사람의 예외는 있지만, 종족의 향상에 기여자인 이들 안돈-사람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로부터 조화-협동된 생각 조절자의 지도와 세라핌천사의 안내에 의하여 영주의 행성 본부 입구로 집합되었다. 여기서 100명 인간 주체들은 아발론으로부터 온 고도로 능숙한 자원자 위원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이들 안돈족속들의 생명 원형질에서의 한 부분의 물질적 추출을 지도하였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러고 나서, 영주의 참모의 100명 예루셈족 요원들이 사용하도록 지어진 물질적 몸체로 이동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새로 도착된 이들 체계 수도의 시민들은 천사의 운송에서의 잠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

Planetary Prince. Daligastia was also a secondary Lanonandek Son, being number 319,407 of that order. He ranked as an assistant at the time of his assignment as Caligastia's associate.

66:2.3 (742.3) The planetary staff included a large number of angelic co-operators and a host of other celestial beings assigned to advance the interest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human races. But from your standpoint the most interesting group of all were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ligastia one hundred*.

66:2.4 (742.4) These one hundred rematerialized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chosen by Caligastia from over 785,000 ascendant citizens of Jerusem who volunteered for embarkation on the Urantia adventure. Each one of the chosen one hundred was from a different planet, and none of them were from Urantia.

66:2.5 (742.5) These Jerusemite volunteers were brought by seraphic transport direct from the system capital to Urantia, and upon arrival they were held enseraphimed until they could be provided with personality forms of the dual nature of special planetary service, literal bodies consisting of flesh and blood but also attuned to the life circuits of the system.

66:2.6 (742.6) Sometime before the arrival of these one hundred Jerusem citizens, the two supervising Life Carriers resident on Urantia, having previously perfected their plans, petitioned Jerusem and Edentia for permission to transplant the life plasm of one hundred selected survivors of the Andon and Fonta stock into the material bodies to be projected for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 request was granted on Jerusem and approved on Edentia.

66:2.7 (742.7) Accordingly, fifty males and fifty females of the Andon and Fonta posterity, representing the survival of the best strains of that unique race, were chosen by the Life Carriers. With one or two exceptions these Andonite contributors to the advancement of the race were strangers to one another. They were assembled from widely separated places by co-ordinated Thought Adjuster direction and seraphic guidance at the threshold of the planetary headquarters of the Prince. Here the one hundred human subjects wer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highly skilled volunteer commission from Avalon, who directed the material extraction of a portion of the life plasm of these Andon descendants. This living material was then transferred to the material bodies constructed for the use of the one hundred Jerusemit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Meantime, these newly arrived citizens of the system capital were held in the sleep of seraphic transport.

이들 활동행위는, 칼리가스티아 100인을 위해 특별한 육체가 말 그대로 창조됨과 동시에, 수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지게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대의 전통들과 나중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재(再)개인성구현의 전체 활동행위는, 100명의 예루셈 자원봉사자들, 영역의 삼중적 존재들을 운송 세라핌천사들이 보호하여 도착된 때로부터 그들이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정확하게 10일이 소요되었다.

제 3 장. 달라마시아—영주의 도시

행성영주의 본부는 그 당시의 페르시아 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후대의 메소포타미아 지구(地區)와 일치되는 곳이었다.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은 영주의 참모진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일하기에 모든 면에서 유리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그 이후 널리 알려지고 나서 종종 맞이했던 조건과 매우 달랐다. 원시 유란시아인 들로 하여금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특정한 초기 진보를 이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자연적인 환경의 일부분으로써 그러한 순조로운 기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의 하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평화를-사랑하는, 집에-거주하는 농부로 진화하리라는 희망과 함께, 사람들을 사냥꾼으로부터 목자(牧者)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영주의 본부는 새로 조성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구체에 있는 전형적인 장소였다. 영주가 정착한 장소의 중심부는 매우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운 도성이었고 40피트에 달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는 달리가스티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달라마시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도성은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유형 참모들로 구성된 10개 의회의 본부 건물들이 각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도성의 가장 중심부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다. 영주와 그의 연관-동료들의 행정-관리적 본부는 성전에 바로 이어서 배열된 12개의 회관에 배치되어 있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단층이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위원 본부와,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높이가 3층으로 되어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중앙 성전만이 예외였다.

그 도성은 건물 재료—벽돌—에 있어서 그러한 초기 시대로서는 가장 훌륭한 실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돌과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집 건물과 마을 고안 건축은 달라마시아의 견본에 따라서 크게 발전하였다.

66:2.8 (742.8) These transactions, together with the literal creation of special bodies for the Caligastia one hundred, gave origin to numerous legends, many of which subsequently became confused with the later traditions concerning the planetary installation of Adam and Eve.

66:2.9 (743.1) The entire transaction of repersonalization, from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eraphic transports bearing the one hundred Jerusem volunteers until they became conscious, threefold beings of the realm, consumed exactly ten days.

3. DALAMATIA — THE CITY OF THE PRINCE

66:3.1 (743.2)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was situated in the Persian Gulf region of those days, in the district corresponding to later Mesopotamia.

66:3.2 (743.3) The climate and landscape in the Mesopotamia of those times were in every way favorable to the undertakings of the Prince's staff and their assistants, very different from conditions which have sometimes since prevailed. It was necessary to have such a favoring climate as a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designed to induce primitive Urantians to make certain initial advances in culture and civilization. The one great task of those ages was to transform man from a hunter to a herder, with the hope that later on he would evolve into a peace-loving, home-abiding farmer.

66:3.3 (743.4) The headquarters of the Planetary Prince on Urantia was typical of such stations on a young and developing sphere. The nucleus of the Prince's settlement was a very simple but beautiful city, enclosed within a wall forty feet high. This world center of culture was named Dalamatia in honor of Daligastia.

66:3.4 (743.5) The city was laid out in ten subdivisions with the headquarters mansions of the ten councils of the corporeal staff situated at the centers of these subdivisions. Centermost in the city was the temple of the unseen Father.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of the Prince and his associates was arranged in twelve chambers immediately grouped about the temple itself.

66:3.5 (743.6) The buildings of Dalamatia were all one story except the council headquarters, which were two stories, and the central temple of the Father of all, which was small but three stories in height.

66:3.6 (743.7) The city represented the best practices of those early days in building material — brick. Very little stone or wood was used. Home building and village architecture among the surrounding peoples were greatly improved by the Dalamatian example.

영주의 본부 근처에는 모든 색깔과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영주의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모집되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이 초기 학교들은 비록 미숙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그 시대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였다.

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우월한 개별존재들을 쉬지 않고 모았으며,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영감(靈感)을 불어넣은 후에는, 그들 각각의 민족들에게 선생과 영도자들이 되도록 돌려보냈다.

제 4 장. 100인의 초기 시절

영주의 참모진의 도착은 심오한 감동을 창조하였다. 소식이 널리 퍼지기까지는 거의 1,000년이 소요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본부 근처에 있는 부족들은 새로 유란시아에 머물게 된 그 100인의 가르침과 행위성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의 신화(神話)들 대부분은, 영주 참모진의 이들 요원들이 유란시아에서 초인적(超人的) 사람으로 재(再)개인성구현된 이 초기 시대의 전설들이 점점 더 왜곡되면서 생긴 것이다.

그러한 가외-행성 선생들의 훌륭한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방해물은 그들을 하느님들로 간주하려는 필사자들의 경향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기법을 제외하고 칼리가스티아 100인—50명의 남자들과 50명의 여자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초인간적인 조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형 참모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색다른 삼중적 존재로서 유란시아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1. 그들은 육체의 형태를 가졌고 비교적 인간에 가까웠는데, 이는 그들이 인간 종족들 중 하나의 실제 생명 원형질로 체현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유란시아에 있었던 안돈의-생명 원형질이었다.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이 100명의 요원들은 그들이 전에 필사자이었을 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었다. 이 집단에 속한 각각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어 어떤 새로운 계층을 갖는 육체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오직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어버이 관계를 이루도록 조심스럽게 지시되었다. 어떤 행성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에게는, 특별한 행성 봉사로부터 은퇴하기 전에 때때로 후계자를 낳는 것이 관례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되는 시기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다.

66:3.7 (743.8) Near the Prince's headquarters there dwelt all colors and strata of human beings. And it was from these near-by tribes that the first students of the Prince's schools were recruited. Although these early schools of Dalamatia were crude, they provided all that could be done for the men and women of that primitive age.

66:3.8 (743.9) The Prince's corporeal staff continuously gathered about them the superior individuals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after training and inspiring these students, sent them back as teachers and leaders of their respective peoples.

4. EARLY DAYS OF THE ONE HUNDRED

66:4.1 (743.10) The arrival of the Prince's staff created a profound impression. While it required almost a thousand years for the news to spread abroad, those tribes near the Mesopotamian headquarters were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eachings and conduct of the one hundred new sojourners on Urantia. And much of your subsequent mythology grew out of the garbled legends of these early days when thes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repersonalized on Urantia as supermen.

66:4.2 (744.1) The serious obstacle to the good influence of such extraplanetary teachers is the tendency of mortals to regard them as gods, but aside from the technique of their appearance on earth the Caligastia one hundred — fifty men and fifty women — did not resort to supernatural methods nor superhuman manipulations.

66:4.3 (744.2) But the corporeal staff were nonetheless superhuman. They began their mission on Urantia as extraordinary threefold beings:

66:4.4 (744.3) 1. They were corporeal and relatively human, for they embodied the actual life plasm of one of the human races, the Andonic life plasm of Urantia.

66:4.5 (744.4) These one hundred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divided equally as to sex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previous mortal status. Each person of this group was capable of becoming coparental to some new order of physical being, but they had been carefully instructed to resort to parenthood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It is customary for the corporeal staff of a Planetary Prince to procreate their successors sometime prior to retiring from special planetary service. Usually this is at, or shortly after,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그러므로 특별한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성(性)적인 연합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창조체가 출산되는지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 관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 세계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단계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전체의 체계가 반란에 의해서 혼란에 빠졌고, 부모가 되는 역할에 나중에 기능하였던 그들은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로부터 이미 고립되어 있었다.

칼리가스티아 참모들 중에 물질화된 이 요원들은, 피부 색깔과 언어에 있어서, 안돈의-종족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영역의 필사자들과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시 창조된 육체를 갖는 이 집단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과일과 나무 열매들이 있는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결정한 조건들 중의 하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실천 관행은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관습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 퍼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 한 때 고기만을 먹었던 진화하는 종족들로부터 기원된 집단들의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그 100인은 물질적이지만 초인간적인 존재였고, 높고 특별한 계층의 독특한 남자와 여자들로서 유란시아 위에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 집단은, 예루셈에서 임시 시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아직 자기들의 생각 조절자와 융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아들관계를 가지고 하강하는 계층들과 연락을 맺으면서 행성 봉사를 수행하는 일에 그들이 자원하고 또 허락을 받았을 때, 그들의 조절자들은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예루셈 거주자들은 초인간적 존재였다—그들은 상승 성장하는 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필사자 생명이 육신 속에 있는 동안, 혼은 태아 상태에 있다; 그것은 모론시아 생명 속에서 태어나고 (부활되고) 계속되는 모론시아 세계들을 통하여 성장되는 체험을 한다. 그리고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혼들은 7개의 맨션세계들을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지나 예루셈에서 시민신분의 지위를 얻기까지 그렇게 확대된 바가 있었다.

자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준수하여, 그 참모진들은 성(性)적 연락을 통한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개인적 구조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마음) 위상들과 모론시아 (혼) 연락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기 훨씬 이전인, 그들이 달라마시아에 머물게 된지 33년째 해에, 단의 후에 집단들 중에서 2번과 7번이 자신들의 모론시아 자아들의 (성(性)구별이 없고 비(非)물질 존재로 간주되는) 연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러한 진기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는 첫 번째 1차 중도 창조체들이 판명되었다. 새로운 이 존재는 행성 참모진과 그들의 천상(天上)의 연관-동료들에게는 전적으로 가시적(可視的)이었지만, 여러 인간 종족들의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성영주의 지시에 따라서, 유형 참모진 전체는 동일한

66:4.6 (744.5) These special beings therefore had little or no idea as to what type of material creature would be produced by their sexual union. And they never did know; before the time for such a step in the prosecution of their world work the entire regime was upset by rebellion, and those who later functioned in the parental role had been isolated from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66:4.7 (744.6) In skin color and language these materialized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followed the Andonic race. They partook of food as did the mortals of the realm with this difference: The re-created bodies of this group were fully satisfied by a nonflesh diet. This was one of the considerations which determined their residence in a warm region abounding in fruits and nuts. The practice of subsisting on a nonflesh diet dates from the times of the Caligastia one hundred, for this custom spread near and far to affect the eating habits of many surrounding tribes, groups of origin in the once exclusively meat-eating evolutionary races.

66:4.8 (744.7) 2. The one hundred were material but superhuman beings, having been reconstituted on Urantia as unique men and women of a high and special order.

66:4.9 (744.8) This group, while enjoying provisional citizenship on Jerusalem, were as yet unfused with their Thought Adjusters; and when they volunteered and were accepted for planetary service in liaison with the descending orders of sonship, their Adjusters were detached. But these Jerusemites were superhuman beings — they possessed souls of ascendant growth.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soul is of embryonic estate; it is born (resurrected) in the morontia life and experiences growth through the successive morontia worlds. And the souls of the Caligastia one hundred had thus expanded through the progressive experiences of the seven mansion worlds to citizenship status on Jerusalem.

66:4.10 (744.9) In conformity to their instructions the staff did not engage in sexual reproduction, but they did painstakingly study their personal constitutions, and they carefully explored every imaginable phase of intellectual (mind) and morontia (soul) liaison. And it was during the thirty-third year of their sojourn in Dalamatia, long before the wall was completed, that number two and number seven of the Danite group accidentally discovered a phenomenon attendant upon the liaison of their morontia selves (supposedly nonsexual and nonmaterial); and the result of this adventure proved to be the first of the primary midway creatures. This new being was wholly visible to the planetary staff and to their celestial associates but was not visible to the men and women of the various human tribes. Upon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였고, 단의 후예이며 선구자 격인 그 쌍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영주의 참모진은 결국에는 50,000명의 1차 중도자들로 구성된 기원적인 무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간적-유형의 창조체들은 그 세계적 본부의 관련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봉사를 감당하였다. 그들은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원래부터 머무는 자들은 이 반(半)영적 존재들을 계속 가르쳤고,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진화하는 이 필사자들에게 총체적인 영 세계를 설립하였다.

3. 칼리가스티아 100인은 개별적으로 영원한 또는 죽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의 해독(解毒) 보완물들이 순환되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 순환회로와의 접촉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나중에 하느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하보나와 파라다이스를 향한 여행을 그 후에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살고 있었을 것이다.

사타니아 생명 흐름들의 이 해독 보완물들은 생명나무의 열매,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할 때 놀라시아텍에 계신 지고자에 의해서 유란시아로 보내진 에덴시아의 나무 열매로부터 추출되었다. 달라마시아의 시대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뜰 중앙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영주의 참모진의 물질적 존재들과 다른 필사 존재들은 이 나무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는 한 무기한적으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다.

진화하는 종족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지만, 칼리가스티아 100인들과 또한 그들과 연관되었던 변형된 100인의 안돈-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만 할 것은, 100명의 안돈-사람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원형질을 영주의 참모진들에게 기증하였을 당시에, 생명운반자들은 그들의 필사 육체 속으로 그 체계 순환회로들의 보완물을 삼입시켰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참모진들과 함께 여러 세기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100명의 안돈-사람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의 새로운 형태를 위해 자신들이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바로 이 100명의 안돈 부족들의 자녀들은 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개인 수행원으로 본부에서 남아 있었다.

authority of the Planetary Prince the entire corporeal staff undertook the production of similar beings, and all were successful,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ioneer Danite pair. Thus did the Prince's staff eventually bring into being the original corps of 50,000 primary midwayers.

66.4.11 (745.1) These mid-type creatures were of great service in carrying on the affairs of the world's headquarters. They were invisible to human beings, but the primitive sojourners at Dalamatia were taught about these unseen semispirits, and for ages they constituted the sum total of the spirit world to these evolving mortals.

66.4.12 (745.2) 3. The Caligastia one hundred were personally immortal, or undying. There circulated through their material forms the antidotal complements of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and had they not lost contact with the life circuits through rebellion, they would have lived on indefinitely until the arrival of a subsequent Son of God, or until their sometime later release to resume the interrupted journey to Havona and Paradise.

66.4.13 (745.3) These antidotal complements of the Satania life currents were derived from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 shrub of Edentia which was sent to Urantia by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at the time of Caligastia's arrival. In the days of Dalamatia this tree grew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temple of the unseen Father, and it was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that enabled the material and otherwise mortal beings of the Prince's staff to live on indefinitely as long as they had access to it.

66.4.14 (745.4) While of no value to the evolutionary races, this supersustenance was quite sufficient to confer continuous life upon the Caligastia one hundred and also upon the one hundred modified Andonites who were associated with them.

66.4.15 (745.5) It should be explained in this connection that, at the time the one hundred Andonites contributed their human germ plasm to the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 Life Carriers introduced into their mortal bodies the complement of the system circuits; and thus were they enabled to live on concurrently with the staff, century after century, in defiance of physical death.

66.4.16 (745.6) Eventually the one hundred Andonites were made aware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new forms of their superiors, and these same one hundred children of the Andon tribes were kept at headquarters as the personal attendants of the Prince's corporeal staff.

제 5 장. 100인 무리의 조직

그 100인들은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자치 협

5. ORGANIZATION OF THE ONE HUNDRED

66.5.1 (745.7) The one hundred were organized for service in ten autonomous councils of ten

의회를 구성하여 봉사를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이 10인 협의회들 중에서 두 개 이상이 합동으로 모일 때에는, 함께 모아진 그러한 연락들을 달리가스티아가 총괄하였다. 이러한 10인 집단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1. 양식과 물질적 변영 관할 협의회. 이 집단은 양이 통솔하였다. 인간 종족들의 양식, 물, 의복, 그리고 물질적인 증진은 유능한 이 대원들에 의해서 육성되었다. 그들은 우물을 파는 것과 샘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물을 대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보다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죽을 처리하여 의복으로 사용하는 발전된 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기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의해서 천을 짜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음식은 익히는 방법과 말리는 방법 그리고 그늘리는 방법에 의해서 보존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장 초기의 재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세상을 격감시키는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되었다.

2. 동물 길들이기와 이용 담당위원회. 이 협의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 존재들 자체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음식 제공에, 그리고 나중에는 땅을 일구는 봉사에 가장 적합한 동물들을 선택하고 사육하는 임무에 전념되었다. 유능한 이 대원들은 본이 통솔하였다.

지금은 멸종된 몇몇 종류의 유용한 동물들이 길들여졌었고, 오늘날까지 길들여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고, 청색 인종들은 이미 코끼리를 잘 길들일 수 있었다. 소는 음식을 위한 유용한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개량 작업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었고; 버터와 치즈는 인간을 위한 흔한 음식 품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일에 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말의 경우에는 후대까지도 길들여지지 않았었다. 이 위원회에 속한 그들은 쉽게 끌어당기기 위하여 바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다.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도 이 시대였고, 소식을 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위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본이 지휘하는 이 집단은 여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대한 환도르 새들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것들은 30,000년 전에 멸종되었다.

3. 육식동물정복에 대한 충고자들. 초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동물들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격적인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들에 의해 과멸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였다. 이 집단은 단이 우두머리였다.

고대 도시들이 성벽을 쌓은 목적은 적대적인 인간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members each. When two or more of these ten councils met in joint session, such liaison gatherings were presided over by Daligastia. These ten groups were constituted as follows:

66:5.2 (745.8) 1. *The council on food and material welfare.* This group was presided over by Ang. Food, water, clothes, and the material advancement of the human species were fostered by this able corps. They taught well digging, spring control, and irrigation. They taught those from the higher altitudes and from the north improved methods of treating skins for use as clothing, and weaving was later introduced by the teachers of art and science.

66:5.3 (746.1) Great advances were made in methods of food storage. Food was preserved by cooking, drying, and smoking; it thus became the earliest property. Man was taught to provide for the hazards of famine, which periodically decimated the world.

66:5.4 (746.2) 2. *The board of animal domestication and utilization.* This council was dedicated to the task of selecting and breeding those animals best adapted to help human beings in bearing burdens and transporting themselves, to supply food, and later on to be of service in the cultivation of the soil. This able corps was directed by Bon.

66:5.5 (746.3) Several types of useful animals, now extinct, were tamed, together with some that have continued as domesticated animals to the present day. Man had long lived with the dog, and the blue man had already been successful in taming the elephant. The cow was so improved by careful breeding as to become a valuable source of food; butter and cheese became common articles of human diet. Men were taught to use oxen for burden bearing, but the horse was not domesticated until a later date. The members of this corps first taught men to use the wheel for the facilitation of traction.

66:5.6 (746.4) It was in these days that carrier pigeons were first used, being taken on long journeys for the purpose of sending messages or calls for help. Bon's group were successful in training the great fanders as passenger birds, but they became extinct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ago.

66:5.7 (746.5) 3. *The advisers regarding the conquest of predatory animals.* It was not enough that early man should try to domesticate certain animals, but he must also learn how to protect himself from destruction by the remainder of the hostile animal world. This group was captained by Dan.

66:5.8 (746.6) The purpose of an ancient city wall was to protect against ferocious beasts as well as to prevent surprise attacks by hostile humans. Those

그러한 성벽이 없는 곳이나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 바위 움막 속, 그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 놓는 방법에 의지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선생들이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거주지를 개선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개선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함정을 이용함으로써,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4. 지식의 보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선생. 이 집단은 그 초기 시대의 순전히 교육적인 노력에 대하여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팻이 통솔하였다. 팻의 교육 방법은 증진된 방법의 노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용인들을 감독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팻은 최초의 알파벳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고 쓰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알파벳은 25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사람들이 글씨를 쓰기 위한 재료로는 나무껍질과 진흙 판, 돌 판, 동물 가죽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양피지 형태, 그리고 말벌 집으로 만든 종이처럼 생긴 조잡한 형태의 물질 등이 사용되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도서관은, 칼리가스티아의 이탈 직후에 파괴되었는데, 2백만 개 이상의 분리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팻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청색 인종은 부분적인 알파벳을 사용하였고 그 쪽 방면으로 큰 진보를 이루었다. 적색 인종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글씨를 쓰기를 좋아하였던 반면, 황색 인종은 말들과 관념들을 위해 상징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갔으며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남에 따라서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알파벳은 물론 아주 많은 것들이 후대의 세계에 전해지지 못하였다.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은, 적어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시대 동안,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세상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5.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이 협의회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거래를 증진시키는 일과, 부족들 안에 산업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영도자는 노이였다. 원시 제조업의 모든 형태는 이 무리단에 의해서 권장되었다. 원시인들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많은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과학과 예술을 전담하는 협의회에 의해서 생산된 개선된 소금의 거래를 매우 널리 확대시켰다.

최초의 상업적인 신용 한계 개념이 실천적이 된 것은 달라마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깨우친 집단 속에서였다. 사람들은 중앙 신용 교환소로부터 실제 물건들을 물물교환으로 주고받는 것을 대신하도록 인정되어진 동전을 확보하였다. 세계는 수 십 만년동안 이러한 장사 방법에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6.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 이 분야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렸다. 유란시아의 문명은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망치와 필요성이라는 모루 사이에서 연마됨으로써 형성되었

living without the walls and in the forest were dependent on tree dwellings, stone huts, and the maintenance of night fires. It was therefore very natural that these teachers should devote much time to instructing their pupils in the improvement of human dwellings. By employing improved techniques and by the use of traps, great progress was made in animal subjugation.

66:5.9 (746.7) 4. *The faculty on dissemination and conservation of knowledge.* This group organized and directed the purely educational endeavors of those early ages. It was presided over by Fad. The educational methods of Fad consisted in supervision of employment accompanied by instruction in improved methods of labor. Fad formulated the first alphabet and introduced a writing system. This alphabet contained twenty-five characters. For writing material these early peoples utilized tree barks, clay tablets, stone slabs, a form of parchment made of hammered hides, and a crude form of paperlike material made from wasps' nests. The Dalamatia library, destroyed soon after the Caligastia disaffection, comprised more than two million separate records and was known as the “house of Fad.”

66:5.10 (746.8) The blue man was partial to alphabet writing and made the greatest progress along such lines. The red man preferred pictorial writing, while the yellow races drifted into the use of symbols for words and ideas, much like those they now employ. But the alphabet and much more was subsequently lost to the world during the confusion attendant upon rebellion. The Caligastia defection destroyed the hope of the world for a universal language, at least for untold ages.

66:5.11 (747.1) 5. *The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This council was employed in fostering industry within the tribes and in promoting trade between the various peace groups. Its leader was Nod. Every form of primitive manufacture was encouraged by this corps. They contributed directly to the elevation of standards of living by providing many new commodities to attract the fancy of primitive men. They greatly expanded the trade in the improved salt produced by the council on science and art.

66:5.12 (747.2) It was among these enlightened groups educated in the Dalamatia schools that the first commercial credit was practiced. From a central exchange of credits they secured tokens which were accepted in lieu of the actual objects of barter. The world did not improve upon these business method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66:5.13 (747.3) 6. *The college of revealed religion.* This body was slow in functioning. Urantia civilization was literally forged out between the anvil of necessity and the hammers of fear. But

다. 그러나 이 집단은, 배반으로 인한 격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후대의 혼란에 의해서 그들의 노고가 중단되기 전에 창조체의 두려움 (유령 경배) 대신에 창조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 협의회의 수장(首長)은 합이었다.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진화의 과정을 복잡하게 얽히게 되도록 계시를 나타내려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진화의 능력이 모두 소모된 정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계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합은 종교적 예배봉사의 형태를 설립하자는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었다. 그의 집단들은 달라마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위한 일곱 개의 영창을 제공해 주었고, 또한 일상적인 찬양-경구(警句)도 주었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만유의 아버지시여, 그 아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오니,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 봐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언제까지나 진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폭력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이웃에 속한 어른들을 공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기쁘게 할 푸른 풀밭과 계절을 주시고 많은 새끼를 낳을 양 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올릴 약속된 자가 오기를 속히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하여 그 너머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하는 것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종족 개량에서의 자연적인 수단들과 평범한 방법에 비록 영주의 참모진이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생물학적 발전의 경지에 달성되고 나서, 뒤이어지는 진화적 성장의 목표로서 새로운 종족에 대한 아담의-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였다.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들. 이 협의회는 공중 위생을 소개하는 일과 원시적인 건강법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여하였으며, 루트가 인도하였다.

그 요원들은 이후 시대의 혼란기에 소멸되고, 20세기까지도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인류에게 익히는 것과 끓이는 것 그리고 굽는 것이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그러한 조리법이 유아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과 일찍 젖을 떼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루트가 인도하는 건강 수호자들의 초기 가르침들 대부분은, 크게 왜곡되고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있는 종족들을 통하여 모세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무지한 이 민족들 속에서 위생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은,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들이 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었으며, 또한 그들 모두가 항상 미

this group had made considerable progress in their attempt to substitute Creator fear for creature fear (ghost worship) before their labors were interrupted by the later confusion attendant upon the secession upheaval. The head of this council was Hap.

66:5.14 (747.4) None of the Prince's staff would present revelation to complicate evolution; they presented revelation only as the climax of their exhaustion of the forces of evolution. But Hap did yield to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of the c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rm of religious service. His group provided the Dalamatians with the seven chants of worship and also gave them the daily praise-phrase and eventually taught them "the Father's prayer," which was:

66:5.15 (747.5) "Father of all, whose Son we honor, look down upon us with favor. Deliver us from the fear of all save you. Make us a pleasure to our divine teachers and forever put truth on our lips. Deliver us from violence and anger; give us respect for our elders and that which belongs to our neighbors. Give us this season green pastures and fruitful flocks to gladden our hearts. We pray for the hastening of the coming of the promised uplifter, and we would do your will on this world as others do on worlds beyond."

66:5.16 (747.6) Although the Prince's staff were limited to natural means and ordinary methods of race improvement, they held out the promise of the Adamic gift of a new race as the goal of subsequent evolutionary growth upon the attainment of the height of biologic development.

66:5.17 (747.7) 7. *The guardians of health and life.* This council was concerned with the introduction of sanitation and the promotion of primitive hygiene and was led by Lut.

66:5.18 (747.8) Its members taught much that was lost during the confusion of subsequent ages, never to be rediscovered until the twentieth century. They taught mankind that cooking, boiling and roasting, was a means of avoiding sickness; also that such cooking greatly reduced infant mortality and facilitated early weaning.

66:5.19 (747.9) Many of the early teachings of Lut's guardians of health persisted among the tribes of earth on down to the days of Moses, even though they became much garbled and were greatly changed.

66:5.20 (748.1) The great obstacle in the way of promoting hygiene among these ignorant peoples consisted in the fact that the real causes of many diseases were too small to be seen by the naked eye, and also because they all held fire in

신적인 시선으로 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불에 태우는 의식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데 수천 년이 소요되었다. 한편 그들은 부패되는 쓰레기들을 땅에 묻도록 설득되었다. 이 신(新) 시대의 공중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진보는, 햇빛이 건강을 제공하고 질병을 몰아내는 수단이라는 체험이 보급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영주가 도래하기 전에는, 목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에 해당되었었다. 원시인들에게 하나의 건강 실천 관행으로 자신의 몸을 씻으라고 설득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 룯은 마침내 종교적 선생들을 설득하여,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정오 헌신 시간과 연결하여 실천되도록, 정결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포함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 건강 수호자들은 개인적인 친구 관계 확인과 집단적 충성심 상징의 방법으로 서로 침을 교환하거나 피를 마시는 방법 대신에 손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우월한 영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한 강제적 압력으로 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들 원시 민족들은 자기들이 전에 시행하던 건강을 파괴하고 질병을 조장하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실천 관행들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8.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행성 협의회. 이 요원들은 초기 인류의 산업 기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향상시키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의 영도자는 맥이었다.

예술과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와 화학의 기초 과정을 배웠다. 그릇 제조법이 발달하였고, 장식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으며, 인간적 아름다움의 이상(理想)이 크게 진보되었다. 그러나 음악은 보라색 종족이 출현할 때까지 거의 진보되지 못하였다.

이 원시인들은 그들의 선생들이 반복하여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기 압력에 대한 실험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억압된 증기의 폭발력에 대한 자신들의 심한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기 사람들에게는 빨강계 달구어진 금속이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금속 그리고 불을 다룰 수 있도록 설득되었다.

맥은 안돈-사람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색 인종의 예술을 증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청색 인종과 안돈 혈통의 혼혈 종족은 예술적으로 재능을 가진 후손들을 낳았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각가가 되었다. 그들은 암석이나 대리석을 다루지 않았고, 진흙으로 작업하였으며,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고, 달라마시아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다.

큰 진전은 가정의 예술품들 중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대부분은 오랫동안 계속된 반역의 암흑기에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superstitious regard. It required thousands of years to persuade them to burn refuse. In the meantime they were urged to bury their decaying rubbish. The great sanitary advance of this epoch came from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regarding the health-giving and disease-destroying properties of sunlight.

66:5.21 (748.2) Before the Prince's arrival, bathing had been an exclusively religious ceremonial. It was indeed difficult to persuade primitive men to wash their bodies as a health practice. Lut finally induced the religious teachers to include cleansing with water as a part of the purification ceremonies to be practiced in connection with the noontime devotions, once a week, in th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66:5.22 (748.3) These guardians of health also sought to introduce handshaking in substitution for saliva exchange or blood drinking as a seal of personal friendship and as a token of group loyalty. But when out from under the compelling pressure of the teachings of their superior leaders, these primitive peoples were not slow in reverting to their former health-destroying and disease-breeding practices of ignorance and superstition.

66:5.23 (748.4) 8. *The planetary council on art and science.* This corps did much to improve the industrial technique of early man and to elevate his concepts of beauty. Their leader was Mek.

66:5.24 (748.5) Art and science were at a low ebb throughout the world, but the rudiments of physics and chemistry were taught the Dalamatians. Pottery was advanced, decorative arts were all improved, and the ideals of human beauty were greatly enhanced. But music made little progress until after the arrival of the violet race.

66:5.25 (748.6) These primitive men would not consent to experiment with steam power, notwithstanding the repeated urgings of their teachers; never could they overcome their great fear of the explosive power of confined steam. They were, however, finally persuaded to work with metals and fire, although a piece of red-hot metal was a terrorizing object to early man.

66:5.26 (748.7) Mek did a great deal to advance the culture of the Andonites and to improve the art of the blue man. A blend of the blue man with the Andon stock produced an artistically gifted type, and many of them became master sculptors. They did not work in stone or marble, but their works of clay, hardened by baking, adorned the gardens of Dalamatia.

66:5.27 (748.8) Great progress was made in the home arts, most of which were lost in the long and dark ages of rebellion, never to be rediscovered until modern times.

9. 증진된 부족 관계의 통치자들. 이 집단은 인간 사회가 국가 형태로 발전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투트였다.

이 영도자들은 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충분히 친해진 뒤에 그리고 적당한 심의를 거친 후에 구혼과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순전히 군사적인 전쟁 무용들이 세련하게 다듬어졌고 매우 유용한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많은 경기 종목들이 소개되었지만, 고대의 이 사람들은 너무 무뎠고; 초기의 이 부족들에게는 우아한 유머가 거의 없었다. 행성 반역에서의 뒤따른 집대성-해체활동에서 이들 실천 관행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투트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평화로운 기질을 갖는 집단적-관계적-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쟁을 규제하고 다정하게 만들기 위해, 종족간의 조화-협동 관계를 위해, 그리고 부족 정부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달라마시아 근처에서는 보다 진보된 문화가 개발되었고, 이렇게 개발된 사회적 관계들은 보다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주어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영주의 본부에서 널리 보급된 그 문명 원형들은 다른 곳에서 진화된 야만적 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마치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몸집이 작은 부시먼 종족의 미개한 문명과 전적으로 다른 것과 같다.

10. 부족 연관과 종족 조화-협동을 담당하는 대법원. 이 최고협의회는 반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인간 관련사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9개의 다른 특별 위원회들 전체에게 호소하는 법정이었다. 이 협의회는 폭 넓게 활동하였고, 다른 집단들에게 특별히 배정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맡고 있는, 폭넓은 기능의 협의회였다. 선발된 이 요원들은 유란시아의 대법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그들이 받기 전에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었다.

66:5.28 (748.9) 9. *The governors of advanced tribal relations.* This was the group intrusted with the work of bringing human society up to the level of statehood. Their chief was Tut.

66:5.29 (748.10) These leaders contributed much to bringing about intertribal marriages. They fostered courtship and marriage after due deliberation and full opportunity to become acquainted. The purely military war dances were refined and made to serve valuable social ends. Many competitive games were introduced, but these ancient folk were a serious people; little humor graced these early tribes. Few of these practices survived the subsequent disintegration of planetary insurrection.

66:5.30 (749.1) Tut and his associates labored to promote group associations of a peaceful nature, to regulate and humanize warfare, to co-ordinate intertribal relations, and to improve tribal governments. In the vicinity of Dalamatia there developed a more advanced culture, and these improved social relations were very helpful in influencing more remote tribes. But the pattern of civilization prevailing at the Prince's headquarters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barbaric society evolving elsewhere, just as the twentieth-century society of Capetown, South Africa, is totally unlike the crude culture of the diminutive Bushmen to the north.

66:5.31 (749.2) 10. *The supreme court of tribal co-ordination and racial co-operation.* This supreme council was directed by Van and was the court of appeals for all of the other nine special commissions charged with the supervision of human affairs. This council was one of wide function, being intrusted with all matters of earthly concern which were not specifically assigned to the other groups. This selected corps had been approv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Edentia before they were authorized to assume the func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Urantia.

제 6 장. 영주의 통치

세계의 문화 수준은 그곳에 태어난 존재들의 사회적 유산에 의하여 측정되며, 그 문화 발전 속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새롭고도 향상된 관념에 대한 이해 능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전통에게 예측된 상태는 과거와 현재를 정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과 협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독창성을 억압하고 개인성의 창의력을 노예화시킨다. 칼리가스티아 100인이 도래하여 그 당시의 사회 집단들 속에 개인적인 독창력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전 세계는 전통에-사로잡힌 사회관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비심이 많은 이 교훈은 너무도 빨리 중단되었으므로 그 종족들은

6. THE PRINCE'S REIGN

66:6.1 (749.3) The degree of a world's culture is measured by the social heritage of its native beings, and the rate of cultural expansion is wholly determined by the ability of its inhabitants to comprehend new and advanced ideas.

66:6.2 (749.4) Slavery to tradition produces stability and co-operation by sentimentally link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but it likewise stifles initiative and enslaves the creative powers of the personality. The whole world was caught in the stalemate of tradition-bound mores when the Caligastia one hundred arrived and began the proclamation of the new gospel of individual initiative within the social groups of that day. But this beneficent rule was so

관습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자유화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풍조는 여전히 유란시아를 심하게 지배하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100인—사타니아 맨션세계 과정을 마친 자들—은 예루셈의 예술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지만, 원시 인간들이 들끓는 미개한 행성 위에서는 그러한 지식이 거의 쓸모가 없었다. 지혜로운 이 존재들은 갑작스러운 변환, 또는 그 당시의 원시 종족들을 한꺼번에 향상시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 종족들 속에 이루어지는 느린 속도의 진화를 잘 납득하였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경시키는 급진적인 시도를 현명하게 억제하였다.

10개의 행성 위원회 각각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관심사항들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어 사회적인 증진을 일으키는 사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민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서로 다른 민족을 사자로 보내지 않았다. 일정한 부족 또는 종족의 증진 또는 발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은 항상 그 부족 또는 종족의 원주민이었다. 그 100인은 아무리 우월한 종족이라도 그들의 습관이나 사회관례들을 다른 부족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각 종족의 사회관례들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항상 인내심을 갖고 작업하였다. 순진한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관습들을 새롭고도 더 좋은 실천 관행과 바꾸려고 달라마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우월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과 함께 지냄을 통하여 보다 높은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자기들의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은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순전히 자연적인 선택 이외에 의도적인 사회적 선택을 덧붙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진화를 현저하게 촉진시켰다. 그들의 목적은 진화에 의한 진보였고 계시에 의한 대변혁이 아니었다. 인간 종족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미미한 종교와 도덕을 획득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으며, 깨우친 우월한 존재들이 되보된 종족들을 과도한 교훈과 과도한 깨우침에 의해서 증진시키고자 할 때 항상 얻어지는 결과인 혼돈과 당황함에 의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진보들을 인류로부터 빼앗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 초인적 존재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곳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들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서 지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아이들에게 21살이 되면 부모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실천 관행을 그들의 세대 안에서 대체시키려고 애를 쓸 때, 그들에게는 모든

soon interrupted that the races never have been wholly liberated from the slavery of custom; fashion still unduly dominates Urantia.

66:6.3 (749.5) The Caligastia one hundred — graduates of the Satania mansion worlds — well knew the arts and culture of Jerusem, but such knowledge is nearly valueless on a barbaric planet populated by primitive humans. These wise beings knew better than to undertake the sudden transformation, or the en masse uplifting, of the primitive races of that day. They well understood the slow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and they wisely refrained from any radical attempts at modifying man's mode of life on earth.

66:6.4 (749.6) Each of the ten planetary commissions set about slowly and naturally to advance the interests intrusted to them. Their plan consisted in attracting the best minds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after training them, sending them back to their people as emissaries of social uplift.

66:6.5 (749.7) Foreign emissaries were never sent to a race except upon the specific request of that people. Those who labored for the uplift and advancement of a given tribe or race were always natives of that tribe or race. The one hundred would not attempt to impose the habits and mores of even a superior race upon another tribe. Always they patiently worked to uplift and advance the time-tried mores of each race. The simple folk of Urantia brought their social customs to Dalamatia, not to exchange them for new and better practices, but to have them uplifted by contact with a higher culture and by association with superior minds. The process was slow but very effectual.

66:6.6 (750.1) The Dalamatia teachers sought to add conscious social selection to the purely natural selection of biologic evolution. They did not derange human society, but they did markedly accelerate its normal and natural evolution. Their motive was progression by evolution and not revolution by revelation. The human race had spent ages in acquiring the little religion and morals it had, and these supermen knew better than to rob mankind of these few advances by the confusion and dismay which always result when enlightened and superior beings undertake to uplift the backward races by overteaching and overenlightenment.

66:6.7 (750.2) When Christian missionaries go into the heart of Africa, where sons and daughters are supposed to remain 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ir parents throughout the lifetime of the parents, they only bring about confusion and the breakdown of all authority when they seek, in a single generation, to supplant this practice by

권한은 붕괴되고 오직 혼란만이 야기될 뿐이다.

teaching that these children should be free from all parental restraint after they have attained the age of twenty-one.

제 7 장. 달라마시아의 생활

영주의 본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그 시대의 원시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수한 분위기였다. 동물을 사용하는 경작 법을 소개함으로써 결국에는 농업이 발전되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다른 곳으로부터 도래한 이 선생들의 목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건물들은 유별나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 도성의 성벽 안에 있는 경작지는 약 20,000명의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목초지와 밭을 제공하였다.

중앙에 있는 경배를 드리는 성전과 초인간들로 구성된 10개 위원회 감독 집단들의 관저들 내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모양, 후대에 개발된 것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단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시 형태였다. 이 세계 문화의 본부에는, 유란시아에 기원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영주에게 소속된, 유형 참모진들은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주거지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세계적인 사회 중심지이며 교육의 본산지인 그곳에 머물면서 학생 관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게 설계된 집이 되도록 그것들을 유지하였다.

명확한 가정생활 체제와 비교적 안정된 장소의 한 주거지에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그 100인과 그들의 제자들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정은, 달라마시아의 초인간적 남자와 여자들이 인간들을 지도하여 그들의 손자들과 그 손자들의 자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도록 만들 때까지는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미개인은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지만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손들도 역시 사랑한다.

영주의 참모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살았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의 직계 자녀들은 없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있는 원형들이 되는 50개의 가정들에는, 안돈의-후예와 산직 종족들의 우월한 가정들로부터 집합된 양자 양녀들이 항상 500명 이상 살고 있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이 초인적 부모들의 단련과 훈련에 호의를 보였고; 그 후에, 영주의 학교들에서 3년의 과정을 (13세부터 15세 사이에 입학하였음) 마치게 되면,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들 각각의 인종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들에게 영주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받아들이었다.

밝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배우는, 그리고

7. LIFE IN DALAMATIA

66:7.1 (750.3) The Prince's headquarters, though exquisitely beautiful and designed to awe the primitive men of that age, was altogether modest. The buildings were not especially large as it was the motive of these imported teachers to encourage the eventual development of agricul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imal husbandry. The land provision within the city walls was sufficient to provide for pasturage and gardening for the support of a population of about twenty thousand.

66:7.2 (750.4) The interiors of the central temple of worship and the ten council mansions of the supervising groups of supermen were indeed beautiful works of art. And while the residential buildings were models of neatness and cleanliness, everything was very simple and altogether primitive in comparison with later-day developments. At this headquarters of culture no methods were employed which did not naturally belong on Urantia.

66:7.3 (750.5) The Prince's corporeal staff presided over simple and exemplary abodes which they maintained as homes designed to inspire and favorably impress the student observers sojourning at the world's social center and educational headquarters.

66:7.4 (750.6) The definite order of family life and the living of one family together in one residence of comparatively settled location date from these times of Dalamatia and were chiefly due to the example and teachings of the one hundred and their pupils. The home as a social unit never became a success until the supermen and superwomen of Dalamatia led mankind to love and plan for their grand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s children. Savage man loves his child, but civilized man loves also his grandchild.

66:7.5 (750.7) The Prince's staff lived together as fathers and mothers. True, they had no children of their own, but the fifty pattern homes of Dalamatia never sheltered less than five hundred adopted little ones assembled from the superior families of the Andonic and Sangik races; many of these children were orphans. They were favored with the discipline and training of these superparents; and then, after three years in the schools of the Prince (they entered from thirteen to fifteen), they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ready to receive their commissions as emissaries of the Prince to the needy tribes of their respective races.

66:7.6 (751.1) Fad sponsored the Dalamatia plan of

그것을 통하여 유익한 과제들을 매일 실행함으로써 자기 방법대로 일하는 하나의 산업 학교로서 시행되었던 달라마시아 교육 계획을 후원하였다. 이 교육 계획은 성격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사고(思考)와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직접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삼았다. 지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남자와 여자들에 모두에 의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보조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집단적인 훈련의 반(半)은 성별로 따로 행해졌고; 나머지 반은 협동으로 교육하였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수공(手工) 기술을 배웠고 여러 집단이나 반으로 나누어 교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나이의 집단들과 협동 작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이 어린 집단들, 나이 많은 집단들, 그리고 어른들과 형제 우애를 가지는 훈련도 받았다. 또한 그들은 가족 집단들, 놀이 팀들, 그리고 학교 학급들과 같은 그런 관계적-연합에도 익숙해졌다.

자기들 각각의 종족들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을 받은 후대의 학생들 중에는, 서부 인도의 고지대로부터 온 안돈-사람들이 있었고 적색 인종들 그리고 청색 인종들의 대표자들도 있었다; 더 후대에는 소수의 황색 인종들도 훈련을 받았다.

합은 초기 인종들에게 도덕률을 제시하였었다. 이 규범은 “아버지의 길(道)”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다음과 같은 7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만유의 아버지 이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

2. 세계들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에게 반드시 복종할 것이며, 그의 초인간적 연관-동료들을 존중해라.

3. 사람들의 재판관 앞에 불려갔을 때 거짓을 말하지 마라.

4.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5.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지 마라.

6. 너희 친구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7. 너희 부모와 부족의 어른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거의 300,000년 동안 달라마시아의 법이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돌들 위에 이 법이 새겨졌고,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해안선에서 떨어져 있는 물밑에 묻혀 있다. 각 요일마다 이 계명들 중의 하나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으며, 그것을 식사시간의 감사 기도과 인사로 사용하였다.

이 시대의 날짜 계산은 월력(月曆), 28일을 한 기간으로 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낮과 밤의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것만이 초기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간 계산법이었다. 7일을 한 주간으로 삼는 방

teaching that was carried out as an industrial school in which the pupils learned by doing, and through which they worked their way by the daily performance of useful tasks. This plan of education did not ignore thinking and feeling i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but it gave first place to manual training. The instruction was individual and collective. The pupils were taught by both men and women and by the two acting conjointly. One half of this group instruction was by sexes; the other half was coeducational. Students were taught manual dexterity as individuals and were socialized in groups or classes. They were trained to fraternize with younger groups, older groups, and adults, as well as to do teamwork with those of their own ages. They were also familiarized with such associations as family groups, play squads, and school classes.

66:7.7 (751.2) Among the later students trained in Mesopotamia for work with their respective races were Andonites from the highlands of western India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d men and the blue men; still later a small number of the yellow race were also received.

66:7.8 (751.3) Hap presented the early races with a moral law. This code was known as “The Father’s Way” and consisted of the following seven commands:

66:7.9 (751.4) 1. You shall not fear nor serve any God but the Father of all.

66:7.10 (751.5) 2. You shall not disobey the Father’s Son, the world’s ruler, nor show disrespect to his superhuman associates.

66:7.11 (751.6) 3. You shall not speak a lie when called before the judges of the people.

66:7.12 (751.7) 4. You shall not kill men, women, or children.

66:7.13 (751.8) 5. You shall not steal your neighbor’s goods or cattle.

66:7.14 (751.9) 6. You shall not touch your friend’s wife.

66:7.15 (751.10) 7. You shall not show disrespect to your parents or to the elders of the tribe.

66:7.16 (751.11) This was the law of Dalamatia for almost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nd many of the stones on which this law was inscribed now lie beneath the waters off the shores of Mesopotamia and Persia. It became the custom to hold one of these commands in mind for each day of the week, using it for salutations and mealtime thanksgiving.

66:7.17 (751.12) The time measurement of these days was the lunar month, this period being reckoned as twenty-eight days. That, with the exception of day and night, was the only time reckoning known

법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로부터 배웠으며 7일이 28일의 4분의 1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초(超)우주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의(意義)는 확실히 그들에게 영적인 암시를 일반적인 시간 계산법에 도입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주일 기간은 자연적으로 기원된 것이 아니다.

그 도성(都城) 주변에 있는 지방 중에서 100마일 반경까지는 매우 잘 정착되어 있었다. 그 도성에 바로 인접된 지역에는, 영주의 학교들을 졸업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물을 이용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의 참모진과 그들의 수많은 인간 조력자들로부터 받아 들였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겼다.

인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농사 짓는 수고에 떠맡겨진 것이 아니었다.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반역자 칼리가스티아의 지도하에 사람이 루시퍼 반란의 어리석음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선포된 판결이 아니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진화적인 세계 위에서 진보하는 문명의 설립에 있어서 선천적인 것이며, 이 명령은 행성 영주와 그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때로부터, 칼리가스티아가 반역자 루시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였던 그 비극적인 시대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300,000년의 기간 전체 동안, 그들의 모든 교훈의 핵심이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적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허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다.

반역이 발발하였을 때, 달라마시아에는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숫자 속에는 정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1,000명 이상의 숫자를 유지하는 방문자들과 관찰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그 먼 옛날 시대에 있었던 믿기 어려운 진보에 대한 개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질 수 없으며; 그 당시에 훌륭한 인간들이 획득하였던 모든 것들은, 속임수와 선동으로 점철된 칼리가스티아 파멸 이후에 따라왔던 비천한 영적 암흑기와 끔찍스러운 혼란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사라졌다.

제 8 장. 칼리가스티아의 불행

칼리가스티아의 긴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의 행위성 중에서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바로 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였다. 그는 거의 모든 항의하는 무리들을 편드는 경향이 있었고, 완곡하게 비난을 표현하는 자들을 일상적으로 동정하였다. 우리는 권한 밑에 있을 때 불안해하고, 감독하는 모든 형태에 언제나 완곡하게 반항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초기에 그것을 간파하였다. 상부 조언에는 약하게 화를 내고 상급 권한 밑에 있을 때에는 어

to the early peoples. The seven-day week was introduced by the Dalamatia teachers and grew out of the fact that seven was one fourth of twenty-eight. The significance of the number seven in the superuniverse undoubtedly afforded them opportunity to introduce a spiritual reminder into the common reckoning of time. But there is no natural origin for the weekly period.

66:7.18 (751.13) The country around the city was quite well settled within a radius of one hundred mile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city, hundreds of graduates of the Prince's schools engaged in animal husbandry and otherwise carried out the instruction they had received from his staff and their numerous human helpers. A few engaged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66:7.19 (751.14) Mankind was not consigned to agricultural toil as the penalty of supposed sin. "In the sweat of your face shall you eat the fruit of the fields" was not a sentence of punishment pronounced because of man's participation in the follies of the Lucifer rebell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The cultivation of the soil is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ing civilization on the evolutionary worlds, and this injunction was the center of all teaching of the Planetary Prince and his staff throughout the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which intervened between their arrival on Urantia and those tragic days when Caligastia threw in his lot with the rebel Lucifer. Work with the soil is not a curse; rather is it the highest blessing to all who are thus permitted to enjoy the most human of all human activities.

66:7.20 (752.1) At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Dalamatia had a resident population of almost six thousand. This number includes the regular students but does not embrace the visitors and observers, who always numbered more than one thousand. But you can have little or no concept of the marvelous progress of those faraway times; practically all of the wonderful human gains of those days were wiped out by the horrible confusion and abject spiritual darkness which followed the Caligastia catastrophe of deception and sedition.

8. MISFORTUNES OF CALIGASTIA

66:8.1 (752.2) In looking back over the long career of Caligastia, we find only one outstanding feature of his conduct that might have challenged attention; he was ultraindividualistic. He was inclined to take sides with almost every party of protest, and he was usually sympathetic with those who gave mild expression to implied criticism. We detect the early appearance of this tendency to be restless under authority, to mildly resent all forms of supervision. While slightly resentful of senior counsel and somewhat restive under superior

느 정도 반항적이었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그는 항상 우주 통치자들에게 충성심을 증명하였고 별자리 아버지들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고약한 배반이 있을 때까지 어떤 실제적인 결점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 둘 모두에게, 그들의 비판적인 경향과 포착되기 어렵게 자라가는 자아에서의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와 연관된 지나치게 확대된 자아-중요성의 감정에 대해, 끈기 있게 가르쳐 왔었고 사랑으로 경고하였음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이며 개인적 해방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개입이라고 잘못 해석하였다.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 둘 모두, 자신들의 친절한 충고자들이 매우 쾌심한 동기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심판하였고, 그러한 동기는 그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이기심으로, 사심-없는 충고자들을 심판하였다.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도착한 이후로, 행성 문명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의 300,000년 동안 진보를 이루었다. 생명-변형의 구체로 지정되었던 것과, 그로 인하여 수많은 변칙들 그리고 진화적 불안정의 특이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면, 루시퍼의 반란과 그와 동시에 일어난 칼리가스티아 배반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유란시아는 그 행성 생애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진전을 이루었다. 그 뒤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큰 실책에 의해서, 그리고 후대에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행성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함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변형되었다.

유란시아의 영주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암흑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이 오랫동안 혼란 속에 빠지게 하였다. 그는 나중에 별자리 통치자들의 조화-협동하는 조치와 다른 우주적 권한자들에게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다. 그는 아담이 지구에 머물게 될 때까지 고립된 유란시아의 아찔 수 없는 상태에 함께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보라색 인종—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의 생혈(生血)이 주입됨으로써 필사 종족들에게 증진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계획이 실패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인간들의 관련사들을 교란시키는 그 타락한 영주의 힘은 아브라함 시대에 필사자로 육신화되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미가엘이 육신 속에 사는 동안, 이 배반자 영주는 유란시아에서의 모든 권한을 최종적으로 빼앗겼다.

유란시아에 있는 개인적인 마귀에 대한 교리는, 배반하고 사악하게 불의한 칼리가스티아의 행성 현존에 어느 정도 기초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귀”가 정상적인 인간 마음의 자유롭고 자연본성적인 선택에 반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는, 전적으로 허구이다. 심지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되기 전에도, 칼리가스티아나

authority, nonetheless, whenever a test had come, he had always proved loyal to the universe rulers and obedient to the mandates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No real fault was ever found in him up to the time of his shameful betrayal of Urantia.

66:8.2 (752.3)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Lucifer and Caligastia had been patiently instructed and lovingly warned respecting their critical tendencies and the subtle development of their pride of self and its associated exaggeration of the feeling of self-importance. But all of these attempts to help had been misconstrued as unwarranted criticism and as unjustified interference with personal liberties. Both Caligastia and Lucifer judged their friendly advisers as being actuated by the very reprehensible motives which were beginning to dominate their own distorted thinking and misguided planning. They judged their unselfish advisers by their own evolving selfishness.

66:8.3 (752.4) From the arrival of Prince Caligastia, planetary civilization progressed in a fairly normal manner for almost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side from being a life-modification sphere and therefore subject to numerous irregularities and unusual episodes of evolutionary fluctuation, Urantia progressed very satisfactorily in its planetary career up to the time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oncurrent Caligastia betrayal. All subsequent history has been definitely modified by this catastrophic blunder as well as by the later failure of Adam and Eve to fulfill their planetary mission.

66:8.4 (752.5) The Prince of Urantia went into darkness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thus precipitating the long confusion of the planet. He was subsequently deprived of sovereign authority by the co-ordinate action of the constellation rulers and other universe authorities. He shared the inevitable vicissitudes of isolated Urantia down to the time of Adam's sojourn on the planet and contributed something to the miscarriage of the plan to uplift the mortal races through the infusion of the lifeblood of the new violet race —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66:8.5 (753.1) The power of the fallen Prince to disturb human affairs was enormously curtailed by the mortal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days of Abraham; and subsequently, during the life of Michael in the flesh, this traitorous Prince was finally shorn of all authority on Urantia.

66:8.6 (753.2) The doctrine of a personal devil on Urantia, though it had some foundation in the planetary presence of the traitorous and iniquitous Caligastia, was nevertheless wholly fictitious in its teachings that such a “devil” could influence the normal human mind against its free and natural choosing. Even before Michael's bestowal on

달리가스티아는 필사자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적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상적인 개별존재도 인간 의지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결코 없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관련사에서 최극이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조차도 사람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에 반하여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바꾸거나 단 한 가지라도 행동하도록 억지로 강제하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지금은, 영역에서 일어난 이 반역은, 전에 자기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힘을 빼앗긴 채로,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이루어질,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였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Urantia, neither Caligastia nor Daligastia was ever able to oppress mortals or to coerce any normal individual into doing anything against the human will. The free will of man is supreme in moral affairs; ev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refuses to compel man to think a single thought or to perform a single act against the choosing of man's own will.

66:8.7 (753.3) And now this rebel of the realm, shorn of all power to harm his former subjects, awaits the final adjudication, by the Uversa Ancients of Days, of all who participated in the Lucifer rebellion.

66:8.8 (753.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67 편 행성의 반란

⇨ 066

유랜시아 책

06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7 편 행성의 반란

섹션

소개

- 제 1 장. 칼리가스티아의 배반
- 제 2 장. 반란이 발발함
- 제 3 장. 흑독하였던 7년의 세월
- 제 4 장. 반란 이후의 칼리가스티아 100인
- 제 5 장. 반란의 즉각적인 결과들
- 제 6 장. 반—흔들리지 않는 자
- 제 7 장. 죄의 먼 반향
- 제 8 장. 반란에서의 인간 영웅

소개

유랜시아에 있는 인간 실존과 연관된 문제들은, 과거의 위대한 신(新)시대의 지식 없이는 납득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행성의 반란의 발생과 영향들은 더욱 그렇다. 비록 이 대격변이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적 진화와 영적인 발전 과정을 현저하게 변경시켰다. 지구의 전체적인 초(超)물리적 역사는 파괴적인 이 재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제 1 장. 칼리가스티아의 배반

루시퍼의 보좌관인 사탄이 정기적인 검열 방문들 중 하나에 임하고 있을 때, 칼리가스티아가 300,000년 동안 유랜시아를 책임 맡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탄이 지구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발칙한 장엄함의 태도는 너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라노난텍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리고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은, 사탄 자신은 빛으로 창조된 뛰

PAPER 67

THE PLANETARY REBELLION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Caligastia Betrayal
- 2. The Outbreak of Rebellion
- 3. The Seven Crucial Years
- 4. The Caligastia One Hundred after Rebellion
- 5. Immediate Results of Rebellion
- 6. Van — The Steadfast
- 7. Remote Repercussions of Sin
- 8. The Human Hero of the Rebellion

INTRODUCTION

67:0.1 (754.1)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human existence on Urantia are impossible of understanding without a knowledge of certain great epochs of the past, notably the occurrence and consequences of the planetary rebellion. Although this upheaval did not seriously interfere with the progress of organic evolution, it did markedly modify the course of social evolution and of spiritual development. The entire superphysical history of the planet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this devastating calamity.

1. THE CALIGASTIA BETRAYAL

67:1.1 (754.2) For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Caligastia had been in charge of Urantia when Satan, Lucifer's assistant, made one of his periodic inspection calls. And when Satan arrived on the planet, his appearance in no way resembled your caricatures of his nefarious majesty. He was, and still is, a Lanonandek Son of great brilliance. “And no marvel, for Satan himself

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검열 과정에서, 사탄은 그 당시에 루시퍼가 획책하였던 “자유 선언”에 대하여 칼리가스티아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주는 그 반란의 공표에 따라서 그 행성을 팔기로 동의하였다. 충성스러운 우주 개인성들은, 신뢰에 대한 이 계획적인 배반 때문에, 특별한 모멸감을 갖고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바라보았다. 창조자 아들은 이 경멸감을 표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네 지휘자인 루시퍼를 닮았고, 그의 사악한 불의를 악의적으로 영속시키고 있다. 그는 진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고취로 높아지려고 할 때부터 거짓말쟁이었다.”

지역우주의 모든 행정-관리적 작업에 있어서, 새롭게 사람이 살게 된 세계 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복지와 안내를 책임 맡은 행성영주에게 부여되었던 것보다 더 신성한 신뢰감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악(惡)의 모든 형태들 중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친구에 대하여 신의 없는 행동과 신뢰에 대한 배반보다 더 개인성 지위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고의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함에 있어서, 칼리가스티아는 자기 개인성을 너무도 철저하게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 뒤로 결코 다시 균형을 충분하게 갖출 수 없게 되었다.

죄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 철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죄(罪)는 조화우주 실체에 대하여 알면서도 저항하는, 한 개인성의 태도이다. 실수는 실체에 대한 오해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은 우주 실체들에서의 부분적인 실현 또는 우주 실체들에 대한 잘못된 적응이다. 그러나 죄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영적 진보에 반대되는 쪽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반면에 사악한 불의는 인정된 실체에 대한 공개적이고 끈질긴 항거로 이루어져 있고 조화우주 광기(狂氣)에 가까운 개인성 집대성-해체활동의 그러한 정도를 의미한다.

실수는 지적 예민성의 부족을 암시 한다; 악은 지혜의 결핍을 암시하고; 죄는 영적으로 빈곤함을 암시하지만, 사악한 불의는 개인성 통제가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죄가 매우 여러 번 선택되고 자주 반복되면,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 습관적인 죄인은 쉽게 사악한 불의를 범하게 되며, 우주와 그 신성한 실체들에 대항하여 전심으로 반역하게 된다. 죄에 대한 모든 태도들은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상습화된 사악하게 불의한 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나쁜 것을 슬퍼하는 체험을 하거나, 혹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일지, 우리는 의심이 든다.

제 2 장. 반란이 발발함

사탄의 검열이 있는 직후에 그리고 행성 관리-행정 당국이 유란시아에서 바야흐로 큰 일들을 실현하려고 하기 직전의 어느 날, 북부 대륙들이 한겨울을 맞고 있을 때, 칼리가스티아는 그의 연

is a brilliant creature of light.”

67.1.2 (754.3) In the course of this inspection Satan informed Caligastia of Lucifer's then proposed “Declaration of Liberty,” and as we now know, the Prince agreed to betray the planet upon the announcement of the rebellion. The loyal universe personalities look with peculiar disdain upon Prince Caligastia because of this premeditated betrayal of trust. The Creator Son voiced this contempt when he said: “You are like your leader, Lucifer, and you have sinfully perpetuated his iniquity. He was a falsifier from the beginning of his self-exaltation because he abode not in the truth.”

67.1.3 (754.4) In all the administrative work of a local universe no high trust is deemed more sacred than that reposed in a Planetary Prince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and guidance of the evolving mortals on a newly inhabited world. And of all forms of evil, none are more destructive of personality status than betrayal of trust and disloyalty to one's confiding friends. In committing this deliberate sin, Caligastia so completely distorted his personality that his mind has never since been able fully to regain its equilibrium.

67.1.4 (754.5) There are many ways of looking at sin, but from the universe philosophic viewpoint sin is the attitude of a personality who is knowingly resisting cosmic reality. Error might be regarded as a misconception or distortion of reality. Evil is a partial realization of, or maladjustment to, universe realities. But sin is a purposeful resistance to divine reality — a conscious choosing to oppose spiritual progress — while iniquity consists in an open and persistent defiance of recognized reality and signifies such a degree of personality disintegration as to border on cosmic insanity.

67.1.5 (755.1) Error suggests lack of intellectual keenness; evil, deficiency of wisdom; sin, abject spiritual poverty; but iniquity is indicative of vanishing personality control.

67.1.6 (755.2) And when sin has so many times been chosen and so often been repeated, it may become habitual. Habitual sinners can easily become iniquitous, become wholehearted rebels against the universe and all of its divine realities. While all manner of sins may be forgiven, we doubt whether the established iniquiter would ever sincerely experience sorrow for his misdeeds or accept forgiveness for his sins.

2. THE OUTBREAK OF REBELLION

67.2.1 (755.3) Shortly after Satan's inspection and when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was on the eve of the realization of great things on Urantia, one day, midwinter of the northern continents,

관-동료인 달리가스티아와 아주 오랫동안 회의를 가졌고, 그 후에 달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의 10개 협의회들을 비범한 안전으로 소집하였다. 이 회의가 열리면서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자신을 유란시아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선언하리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모든 관리-행정적 집단들의 직능을 파기함으로써, 행성 정부의 재구성과 관리-행정 권한에서의 각료들을 나중에 다시 배치할 때까지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 수탁자인 달리가스티아에게 일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케 하는 이러한 요구가 제시된 후에, 조화-협동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협의회의 의장인 반의 주도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뛰어난 실력의 행정-관리자면서 유능한 법학자인 이 위원장은 칼리가스티아가 확책하는 방향이 행성 반란에 가까운 행위라고 낙인을 찍었고,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인 루시퍼에게 상소할 때까지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체 참모진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소가 예루셈에 제시되었고, 그러자 곧바로 칼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최극 주권자로 임명한다는 명령과 그의 지시에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성하라는 명령이 즉시 하달되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고귀한 반은 7시간에 걸친 잇을 수 없는 긴 연설을 통하여, 네바돈 우주의 주권에 대한 모독죄로 달리가스티아와 칼리가스티아 그리고 루시퍼에 대한 자신의 고발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지지와 확인 받으려고 호소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체계 순환회로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유란시아는 고립되었다. 지구 위에 있는 천상(天上)의 생명 각 집단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고립되었음을, 외부의 모든 충고와 조언이 철저히 차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달리가스티아는 칼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의 하느님이고 만유 위에 계신 최극”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자, 논쟁들이 분명하게 제기되었고; 각 집단들은 독자적으로 물러 나와서 토론하게 되었으며, 그 토론은 지구 위에 있는 초인간적 개인성들 각각의 숙명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이었다.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이러한 격렬한 투쟁, 길고도 죄로 가득한 투쟁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란시아가 고립되던 그 당시에 우연히 그곳에 왔던 많은 초인간적 집단들이 이곳에 억류되었고,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죄(罪)와 정의 둘 중에서—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루시퍼의 진로 사이에서—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은 7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각각의 개인성들이 모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에덴시아의 권한자들은 방해하

Caligastia held a prolonged conference with his associate, Daligastia, after which the latter called the ten councils of Urantia in session extraordinary. This assembly was opened with the statement that Prince Caligastia was about to proclaim himself absolute sovereign of Urantia and demanded that all administrative groups abdicate by resigning all of their functions and powers into the hands of Daligastia as trustee, pen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lanetary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redistribution of these offices of administrative authority.

67:2.2 (755.4) The presentation of this astounding demand was followed by the masterly appeal of Van,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of coordination. This distinguished administrator and able jurist branded the proposed course of Caligastia as an act bordering on planetary rebellion and appealed to his conferees to abstain from all participation until an appeal could be taken to Lucifer, the System Sovereign of Satania; and he won the support of the entire staff. Accordingly, appeal was taken to Jerusalem, and forthwith came back the orders designating Caligastia as supreme sovereign on Urantia and commanding absolute and unquestioning allegiance to his mandates. And it was in reply to this amazing message that the noble Van made his memorable address of seven hours' length in which he formally drew his indictment of Daligastia, Caligastia, and Lucifer as standing in contempt of the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and he appeal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for support and confirmation.

67:2.3 (755.5) Meantime the system circuits had been severed; Urantia was isolated. Every group of celestial life on the planet found itself suddenly and without warning isolated, utterly cut off from all outside counsel and advice.

67:2.4 (755.6) Daligastia formally proclaimed Caligastia “God of Urantia and supreme over all.” With this proclamation before them, the issues were clearly drawn; and each group drew off by itself and began deliberations, discussions destined eventually to determine the fate of every superhuman personality on the planet.

67:2.5 (755.7) Seraphim and cherubim and other celestial beings were involved in the decisions of this bitter struggle, this long and sinful conflict. Many superhuman groups that chanced to be on Urantia at the time of its isolation were detained here and, like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were compelled to choose between sin and righteousness — between the ways of Lucifer and the will of the unseen Father.

67:2.6 (755.1) For more than seven years this struggle continued. Not until every personality concerned had made a final decision, would or did

지 않거나 또는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그때까지는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연관-동료들이 변호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오래 끌었던 그들의 걱정과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했다.

제 3 장. 흑독하였던 7년의 세월

사타니아의 수도 예루셈에서의 반란의 발발은 멜기세덱 협의회에 의하여 널리 방송되었다. 비상시에 활동하는 멜기세덱들이 즉시 예루셈으로 파견되었고, 가브리엘은 권한에 도전받게 되었던 창조자 아들의 대리자로 활동할 것을 자진하였다. 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그 체계는 고립되었고 그의 자매 체계들로부터 격리되었다. 사타니아의 본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지역우주의 모든 행성에 확산되었다.

유란시아에서는, 100명의 유형 참모진 중에서 40명(반을 포함하여)이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참모진의 인간 보좌관들(변형되고 다른 상태에 있는) 대부분도 역시 미가엘과 그의 우주 정부에 대한 수호자들이 되었다.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들 중에서는 몹시 많은 개인성들이 손실되었다. 지구에 배정되었던 행정-관리자들과 과도기적 세라핌천사들 중에서는 거의 반(半) 정도가 루시퍼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영도자와 달리 가스티아에게 합류하였다. 1차 중도 창조체들 중에서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와 손을 잡았지만, 이 존재들 중에서 나머지는 그들의 신뢰에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반역자를 지은 영주는 불충한 중도 창조체들과 반역한 다른 개인성 집단들을 집합시켰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조직하였으며, 반면에 받은 충성된 중도자들과 신실한 다른 집단들을 모았고, 행성 참모진 그리고 고립된 다른 천상의 개인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전투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충성된 존재들은 달라마시아의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마련된 벽이 없고 거의 보호되지 못한 촌락에서 거주하였지만, 그들의 거주지는 깨어서 항상 파수를 보는 충성된 중도 창조체들에 의해서 밤이나 낮이나 보호를 받았으며, 그들은 아주 귀중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역이 발발하게 되자, 충성된 케루빔들과 세라핌천사들은 3명의 신실한 중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나무의 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오직 40명의 충성된 참모진들과 그들의 연관-동료인 변환된 필사자만이 이 에너지 식물의 열매와 잎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중에는 그 참모진의 연관-동료인 변형된 안돈-사람들이 56명 있었고, 불충한 참모진의 안돈-사람 수행원 중에서도 16명은 자기들의 주인을 따라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the authorities of Edentia interfere or intervene. Not until then did Van and his loyal associates receive vindication and release from their prolonged anxiety and intolerable suspense.

3. THE SEVEN CRUCIAL YEARS

67:3.1 (756.2) The outbreak of rebellion on Jerusalem, the capital of Satania, was broadcast by the Melchizedek council. The emergency Melchizedek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Jerusalem, and Gabriel volunteered to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reator Son, whose authority had been challenged. With this broadcast of the fact of rebellion in Satania the system was isolated, quarantined, from her sister systems. There was “war in heaven,” the headquarters of Satania, and it spread to every planet in the local system.

67:3.2 (756.3) On Urantia forty members of the corporeal staff of one hundred (including Van) refused to join the insurrection. Many of the staff's human assistants (modified and otherwise) were also brave and noble defenders of Michael and his universe government. There was a terrible loss of personalities among seraphim and cherubim. Almost one half of the administrator and transition seraphim assigned to the planet joined their leader and Daligastia in support of the cause of Lucifer. Forty thousand one hundred and nineteen of the primary midway creatures joined hands with Caligastia, but the remainder of these beings remained true to their trust.

67:3.3 (756.4) The traitorous Prince marshaled the disloyal midway creatures and other groups of rebel personalities and organized them to execute his bidding, while Van assembled the loyal midwayers and other faithful groups and began the great battle for the salvation of the planetary staff and other marooned celestial personalities.

67:3.4 (756.5) During the times of this struggle the loyalists dwelt in an unvalled and poorly protected settlement a few miles to the east of Dalamatia, but their dwellings were guarded day and night by the alert and ever-watchful loyal midway creatures, and they had possession of the priceless tree of life.

67:3.5 (756.6) Upon the outbreak of rebellion, loyal cherubim and seraphim, with the aid of three faithful midwayers, assumed the custody of the tree of life and permitted only the forty loyalists of the staff and their associated modified mortals to partake of the fruit and leaves of this energy plant. There were fifty-six of these modified Andonite associates of the staff, sixteen of the Andonite attendants of the disloyal staff refusing to go into rebellion with their masters.

칼리가스티아가 반란을 일으킨 이래 혹독한 7년의 세월 동안, 반은 사람들과 중도자들 그리고 천사들로 구성된 충성된 자기 무리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였다. 반으로 하여금 그 우주 정부에 대한 그러한 확고부동한 태도의 충성심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인 확고함은, 명확한 사고(思考), 현명한 논법, 논리적인 판단, 진실한 의도, 이타적인 목적, 지능적인 충성심, 체험적인 회상(回想), 단련 받은 성격,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기 개인성을 주저하지 않고 전념하는 태도의 산물이었다.

기다리면서 보낸 이 7년의 세월은 마음을 음미하고 혼을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우주 실증의 관련사에서의 그러한 위기들은,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써 마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험은, 진화하는 모든 도덕적 창조체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다. 그러나 충분하게 현신된 창조체의 의지로 하여금,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대하여 충성된 현신을 하는 놀라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도록, 인간 개인성의 결심-확정 힘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이루는 것은, 내주하는 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반의 변형된 인간 연관-동료인 아마돈의 체험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아마돈은 루시퍼 반란에 있어서 특출한 인간 영웅이었다. 안돈과 폰타의 후예인 이 남자는 영주의 참모진에게 생명 원형질을 기부하였던 100명 중의 하나였으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줄곧 반의 연관-동료이자 인간 보좌관으로 그와 함께 활동하였다. 아마돈은 그 길고도 괴로운 투쟁기간 동안 자기 우두머리와 한 편이 되기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진화하는 종족들의 이 자손들이 달리가스티아의 궤변들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면서, 7년의 투쟁기간 동안 그와 그의 충성된 연관-동료들이 명석한 칼리가스티아의 현혹하는 모든 가르침들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을 보는 일은, 하나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광경이었다.

우주의 관련사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체험을 소유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칼리가스티아는 타락하였다—죄를 지었다. 최소한의 지성을 소유하고 우주 체험은 전혀 소유하지 못한 아마돈은, 그 우주에 대한 봉사와 자기 연관-동료에 대한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다. 반은 지적인 결단과 영적인 통찰력의 장엄하고 효과적인 배합을 통하여 마음과 영을 둘 모두 이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개인성 실현의 체험적 차원을 성취하였다. 마음과 영은, 충분히 연합될 때, 초인간적 가치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로시아 실체들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비극적인 날들 동안 소란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개인성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에서야, 유란시아에서의 권한을 몰수하기 위해 에덴시아의 지

67:3.6 (756.7) Throughout the seven crucial year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Van was wholly devoted to the work of ministry to his loyal army of men, midwayers, and angels. The spiritual insight and moral steadfastness which enabled Van to maintain such an unshakable attitude of loyalty to the universe government was the product of clear thinking, wise reasoning, logical judgment, sincere motivation, unselfish purpose, intelligent loyalty, experiential memory, disciplined character, and the unquestioning dedication of his personality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Paradise.

67:3.7 (756.8) This seven years of waiting was a time of heart searching and soul discipline. Such crises in the affairs of a universe demonstrate the tremendous influence of mind as a factor in spiritual choosing.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are factors in most of the vital decisions of all evolutionary moral creatures. But it is entirely possible for the indwelling spirit to make direct contact with the decision-determining powers of the human personality so as to empower the fully consecrated will of the creature to perform amazing acts of loyal devotion to the will and the way of the Father in Paradise. And this is just what occurred in the experience of Amadon, the modified human associate of Van.

67:3.8 (757.1) Amadon is the outstanding human hero of the Lucifer rebellion. This male descendant of Andon and Fonta was one of the one hundred who contributed life plasm to the Prince's staff, and ever since that event he had been attached to Van as his associate and human assistant. Amadon elected to stand with his chief throughout the long and trying struggle. And it was an inspiring sight to behold this child of the evolutionary races standing unmoved by the sophistries of Daligastia while throughout the seven-year struggle he and his loyal associates resisted with unyielding fortitude all of the deceptive teachings of the brilliant Caligastia.

67:3.9 (757.2) Caligastia, with a maximum of intelligence and a vast experience in universe affairs, went astray — embraced sin. Amadon, with a minimum of intelligence and utterly devoid of universe experience, remained steadfast in the service of the universe and in loyalty to his associate. Van utilized both mind and spirit in a magnificent and effective combination of intellectual determination and spiritual insight, thereby achieving an experiential level of personality realization of the highest attainable order. Mind and spirit, when fully united, are potential for the creation of superhuman values, even morontia realities.

67:3.10 (757.3) There is no end to the recital of the stirring events of these tragic days. But at last the final decision of the last personality was made, and then, but only then, did a Most High of Edentia

고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멜기세덱들과 함께 도착하였다. 예루셈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된 칼리가스티아 통치-기록들이 삭제되었고, 행성 재건을 위한 유예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 4 장. 반란 이후의 칼리가스티아 100인

최종적인 출석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적 형태를 입은 요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반과 그의 조화-협동 법정 전체는 충성된 상태를 견지하였다. 음식을 담당하는 협의회 중에서 앙과 3명의 요원이 살아남았다. 동물을 이용한 경작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모두 반란에 가담하였고 동물-지배 충고자들 전원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 중에서 5명과 낫은 생존되었다. 산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낫은 칼리가스티아에게 가담하였다. 종교를 계시하는 전체 무리들과 합은 반과 그의 훌륭한 일행들과 함께 충성된 존재로 남아 있었다. 건강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낫은 멸망하였다.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협의회 전체가 충성된 상태로 남았지만, 부족 정부를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낫은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100명 중에서 40명이 구원되었고, 나중에 예루셈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계속 여행하였다.

행성 참모진 중에서 반역에 가담한 60명은 자기들의 영도자로 낫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반역한 영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였지만, 그 체계의 생명 순환 경로의 생명 양식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필사 존재의 지위로 퇴보하였다는 사실에 눈을 떴던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간적 존재였지만, 동시에 물질적이고 필사 존재였다. 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달리가스티아는 즉시 성(性)적 방법으로 번식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기원적인 60명과 변형된 44명의 안돈-사람 연관-동료들이 죽음에 의해서 곧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라마시아가 함락된 후에 불충한 그 참모진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낫-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이 거주하던 장소는 “낫의 땅”이라고 불려졌다.

반란으로 인하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특출한 이 초인간적 남자들과 여자들의 현존은, 이윽고 땅의 아들과 딸들과 짝을 짓게 되었으며, 하느님들이 땅으로 내려와 필사자들과 배우자 관계를 이루었다는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기원시켰다. 그리하여 신화적(神話的)인 본성을 갖는 수많은 전설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반란 이후 시대의 사실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나중에 그것들은 자기 조상들이 낫-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과의 이러한 접촉에 가담하였던 여러 민족들의 민간설화와 전승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arrive with the emergency Melchizedeks to seize authority on Urantia. The Caligastia panoramic reign-records on Jerusalem were obliterated, and the probationary era of planetary rehabilitation was inaugurated.

4. THE CALIGASTIA ONE HUNDRED AFTER REBELLION

67:4.1 (757.4) When the final roll was called, the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were found to have aligned themselves as follows: Van and his entire court of co-ordination had remained loyal. Ang and three members of the food council had survived. The board of animal husbandry were all swept into rebellion as were all of the animal-conquest advisers. Fad and five members of the educational faculty were saved. Nod and all of the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joined Caligastia. Hap and the entire college of revealed religion remained loyal with Van and his noble band. Lut and the whole board of health were lost. The council of art and science remained loyal in its entirety, but Tut and the commission on tribal government all went astray. Thus were forty out of the one hundred saved, later to be transferred to Jerusalem, where they resumed their Paradise journey.

67:4.2 (757.5) The sixty members of the planetary staff who went into rebellion chose Nod as their leader. They worked wholeheartedly for the rebel Prince but soon discovered that they were deprived of the sustenance of the system life circuits. They awakened to the fact that they had been degraded to the status of mortal beings. They were indeed superhuman but, at the same time, material and mortal. In an effort to increase their numbers, Daligastia ordered immediate resort to sexual reproduction, knowing full well that the original sixty and their forty-four modified Andonite associates were doomed to suffer extinction by death, sooner or later. After the fall of Dalamatia the disloyal staff migrated to the north and the east. Their descendants were long known as the Nodites, and their dwelling place as “the land of Nod.”

67:4.3 (758.1) The presence of these extraordinary supermen and superwomen, stranded by rebellion and presently mating with the sons and daughters of earth, easily gave origin to those traditional stories of the gods coming down to mate with mortals. And thus originated the thousand and one legends of a mythical nature, but founded on the facts of the postrebellion days, which later found a place in the folk tales and traditions of the various peoples whose ancestors had participated in these contacts with the Nodites and their descendants.

반란에 가담한 그 참모진들은, 영적인 양식을 빼앗긴 채로, 결국에는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인간 종족들의 우상 숭배 대부분은 칼리가스티아 시대에 고귀하게 숭앙을 받던 이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려는 열망에서 발생되었다.

100명의 그 참모진들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생각 조절자와 분리되어 있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충성된 그 개인성들(반을 제외한)은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기다리고 있던 자기들의 조절자들과 재(再)연합하였다. 우리는 반역에 가담하였던 그 60명 참모진의 운명을 알지 못 한다; 그들의 조절자들은 아직도 예루셈에 머물고 있다. 루시퍼의 반란 전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모든 가담자들의 운명이 정해질 때까지, 그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 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

천사들 그리고 중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그리고 달리가스티아와 같은 뛰어나고 신뢰받는 통치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반역죄를 범하는—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죄에 빠진 그 존재들—그들은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다—은 자신들의 상급자들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었고 믿었던 영도자들에게 속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시적인 마음을 소유한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잘못 인도된 여러 행성들과 예루셈에서의 루시퍼 반란의 희생자들이었던 모든 인간들 거의 대부분과 초인간적 존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가 아주 최근에 시작한, 사타니아 반란의 관련사들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완결 지을 때, 그러한 진지한 참회자들 모두는 어떤 방법의 의해서 회복되고 우주 봉사의 어떤 위상들로 복직될 것이다.

제 5 장. 반란의 즉각적인 결과들

그 반란이 선동된 이후로, 큰 혼란이 거의 50년 동안 달라마시아에 퍼져 있었다. 전 세계에 대한 완벽하고도 급진적인 재조직이 시도되었고; 진화 대신에 대변혁이 문화적 발전과 종족의 개선 방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달라마시아 내부와 그 주변에 있던, 부분적으로 훈련된 우월한 체류자들 중에서, 문화적인 지위에 갑작스러운 진보가 나타났다; 새롭고도 급진적인 이 방법들이 외곽에 있는 민족들에게 시도되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인종적인 대혼란이 즉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어설프게 진화된 원시인들에 의해서, 자유는 재빨리 방종으로 변하고 말았다.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동에 가담한 참모진들 전체는, 시기상조로 그들에게 가

67:4.4 (758.2) The staff rebels, deprived of spiritual sustenance, eventually died a natural death. And much of the subsequent idolatry of the human races grew out of the desire to perpetuate the memory of these highly honored beings of the days of Caligastia.

67:4.5 (758.3) When the staff of one hundred came to Urantia, they were temporarily detached from their Thought Adjusters. Immediately upon the arri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he loyal personalities (except Van) were returned to Jerusalem and were reunited with their waiting Adjusters. We know not the fate of the sixty staff rebels; their Adjusters still tarry on Jerusalem. Matters will undoubtedly rest as they now are until the entire Lucifer rebellion is finally adjudicated and the fate of all participants decreed.

67:4.6 (758.4) It was very difficult for such beings as angels and midwayers to conceive of brilliant and trusted rulers like Caligastia and Daligastia going astray — committing traitorous sin. Those beings who fell into sin — they did not deliberately or premeditatedly enter upon rebellion — were misled by their superiors, deceived by their trusted leaders. It was likewise easy to win the support of the primitive-minded evolutionary mortals.

67:4.7 (758.5) The vast majority of all human and superhuman beings who were victims of the Lucifer rebellion on Jerusalem and the various misled planets have long since heartily repented of their folly; and we truly believe that all such sincere penitents will in some manner be rehabilitated and restored to some phase of universe service when the Ancients of Days finally complete the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Satania rebellion, which they have so recently begun.

5. IMMEDIATE RESULTS OF REBELLION

67:5.1 (758.6) Great confusion reigned in Dalamatia and thereabout for almost fifty years after the instigation of rebellion. The complete and radical reorganization of the whole world was attempted; revolution displaced evolution as the policy of cultural advancement and racial improvement. Among the superior and partially trained sojourners in and near Dalamatia there appeared a sudden advancement in cultural status, but when these new and radical methods were attempted on the outlying peoples, indescribable confusion and racial pandemonium was the immediate result. Liberty was quickly translated into license by the half-evolved primitive men of those days.

67:5.2 (758.7) Very soon after the rebellion the entire staff of sedition were engaged in energetic

르쳐졌던 해방 정책의 결과로, 사방의 벽으로 물려드는 반(半) 야만인들 무리의 약탈에 대항하여, 그 도시를 방어하는 일에 활기차게 가담하였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본부가 남부 지역의 물결 밑으로 가라앉기 수년 전에, 달라마시아의 시골 지역에 있던 오도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부족들이 화려한 그 도시에 반(半) 야만적인 급습을 감행하여, 분리된 참모진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을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개별적인 자유와 집단적인 해방에 대한 칼리가스티아의 관념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건설하고자 하였던 그의 계획은, 신속하게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회는 과거의 생물학적 차원으로 재빨리 후퇴하였으며, 더욱 심한 투쟁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칼리가스티아의 체제, 세계를 더욱 심각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 대격변이 시작되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반란이 있은 후 162년이 지났을 때에는 조수(潮水)에 의한 파도가 달라마시아를 뒤덮었으며, 그 행성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화려한 시대들의 고귀한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다.

세계 최초의 수도가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을 당시, 그곳에는 유란시아의 산직 종족들에서의 가장 낮은 유형들, 이미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거짓 하느님, 녹에게 바치는 사당(祠堂)으로 개조했었던, 배교자들만 번식하고 있었다.

제 6 장. 반—흔들리지 않는 자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일찍부터 인도 서부의 고지대로 물러났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낮은 지대의 혼잡한 종족들에 의한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산직 부족들이 태어나던 시대 직전에 바도난-사람인 그들의 초기 선조들이 한 때 무의식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모두 일했던 것처럼, 그들은 숨어 있는 그 장소로부터 세계를 부흥시킬 계획을 하였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위원회에게 인간 관련 사들에 대한 관리-행정을 맡겼으며, 그 집단들은 영주가 통치하였을 당시와 동일하였다. 거주하고 있던 선임 생명운반자들이, 40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의 일시적인 지도 권한을 맡았으며, 대기 상태에 있던 7년 동안 기능하였다. 39명의 충성된 참모진 요원들이 예루셈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돈-사람으로 구성된 비슷한 집단들이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들 아마돈-사람들은 아마돈이 소속된 144명의 충성된 안돈-사람들 집단에서 유래되었으며,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집단

defense of the city against the hordes of semisavages who besieged its walls as a result of the doctrines of liberty which had been prematurely taught them. And years before the beautiful headquarters went down beneath the southern waves, the misled and mistaught tribes of the Dalamatia hinterland had already swept down in semisavage assault on the splendid city, driving the secession staff and their associates northward.

67:5.3 (759.1) The Caligastia scheme for the immediat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of individual freedom and group liberties, proved a swift and more or less complete failure. Society quickly sank back to its old biologic level, and the forward struggle began all over, starting not very far in advance of where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aligastia regime, this upheaval having left the world in confusion worse confounded.

67:5.4 (759.2) One hundred and sixty-two years after the rebellion a tidal wave swept up over Dalamatia, and the planetary headquarters sank beneath the waters of the sea, and this land did not again emerge until almost every vestige of the noble culture of those splendid ages had been obliterated.

67:5.5 (759.3) When the first capital of the world was engulfed, it harbored only the lowest types of the Sangik races of Urantia, renegades who had already converted the Father's temple into a shrine dedicated to Nog, the false god of light and fire.

6. VAN — THE STEADFAST

67:6.1 (759.4) The followers of Van early withdrew to the highlands west of India, where they were exempt from attacks by the confused races of the lowlands, and from which place of retirement they planned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world as their early Badonite predecessors had once all unwittingly worked for the welfare of mankind just before the days of the birth of the Sangik tribes.

67:6.2 (759.5) Before the arrival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Van placed the administration of human affairs in the hands of ten commissions of four each, groups identical with those of the Prince's regime. The senior resident Life Carriers assumed temporary leadership of this council of forty, which functioned throughout the seven years of waiting. Similar groups of Amadonites assumed these responsibilities when the thirty-nine loyal staff members returned to Jerusalem.

67:6.3 (759.6) These Amadonites were derived from the group of 144 loyal Andonites to which Amadon belonged, and who have become known by his

속에는 39명의 남자와 105명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요원들 중에서 56명은 불멸성 지위에 있었고, 그들 모두는 (아마돈을 제외한) 충성된 참모진 요원들을 따라서 옮겨졌다. 고귀한 이 집단들 중에서 그 나머지는 그들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반과 아마돈의 지도 아래에서 지구 위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 반란 이후 시대의 긴 암흑기 기간 동안 내내 그 세계를 위한 지도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증식되는 생물학적 발효제 역할을 하였다.

반은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고, 그 행성에서 기능하는 초인간적 개인성들 전체의 명예 수석(首席)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와 아마돈의 생명은 멜기세덱들의 전문화된 생명 사명활동과 관련된 생명나무 기법에 의해서 150,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유란시아의 관련사들은, 수석 별자리 통치자, 놀라시아텍의 지도자 아버지에 의해서 비준된, 12명의 멜기세덱들인, 행성 접수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운영되어 왔다. 멜기세덱 접수자들과 연관된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타락한 영주의 충성된 도움자들 중에서 1명,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 2명, 견습생 신분으로 훈련받는 삼위일체화 아들 1명, 자원봉사자인 교사 아들 1명, 아발론의 찬란한 저녁별 1명(주기적으로), 세라핌천사들의 우두머리와 케루빔들의 우두머리, 이웃에 있는 두 행성들로부터 온 충고자들, 하급(下級) 천사 생명의 지도 사령관, 그리고 중도 창조체의 우두머리 지도자인 반. 그리하여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관리-운영되었다. 용감하고 충성된 반이, 행성 접수자들의 협의회 대신에 유란시아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도록 그토록 오랫동안 배치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란시아의 12인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용감스럽게 일하였다. 그들은 남아있는 문명들을 보존하였고, 그들의 행성 정책들은 반에 의해서 신실하게 수행되었다. 그 반란이 일어난 후로 1,0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는 350개 이상의 진보된 집단들을 세계 전역으로 파견하였다. 이 문명 전초기지들은 주로 충성된 안돈-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산각 종족들 특히 청색 인종들이 약간 섞여 있었고 낯-사람들도 있었다.

반란에 의한 심각한 퇴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위에는 생물학적인 전망이 훌륭한 많은 혈통들이 있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감독하에, 반과 아마돈은 인간 종족의 자연적인 진화를 육성시키는 일을 계속하였고, 물질아들과 딸을 유란시아로 파견하도록 보증하는 최종적인 성취에 도달할 때까지 사람의 육체적인 진화를 발전시켰다.

반과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도래한 직후까

name. This group comprised thirty-nine men and one hundred and five women. Fifty-six of this number were of immortality status, and all (except Amadon) were translated along with the loyal members of the staff. The remainder of this noble band continued on earth to the end of their mortal days under the leadership of Van and Amadon. They were the biologic leaven which multiplied and continued to furnish leadership for the world down through the long dark ages of the postrebellion era.

67:6.4 (759.7) Van was left on Urantia until the time of Adam, remaining as titular head of all superhuman personalities functioning on the planet. He and Amadon were sustained by the technique of the tree of life in conjunction with the specialized life ministry of the Melchizedeks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67:6.5 (759.8) The affairs of Urantia were for a long time administered by a council of planetary receivers, twelve Melchizedeks, confirmed by the mandate of the senior constellation ruler, the Most High Father of Norlatiadek. Associated with the Melchizedek receivers was an advisory council consisting of: one of the loyal aids of the fallen Prince, the two resident Life Carriers, a Trinitized Son in apprenticeship training, a volunteer Teacher Son, a Brilliant Evening Star of Avalon (periodically), the chiefs of seraphim and cherubim, advisers from two neighboring planets, the director general of subordinate angelic life, and Van,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us was Urantia governed and administered until the arrival of Adam. It is not strange that the courageous and loyal Van was assigned a place on the council of planetary receivers which for so long administered the affairs of Urantia.

67:6.6 (760.1)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of Urantia did heroic work. They preserved the remnants of civilization, and their planetary policies were faithfully executed by Van. Within one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he had more than three hundred and fifty advanced groups scattered abroad in the world. These outposts of civilization consisted largely of the descendants of the loyal Andonites slightly admixed with the Sangik races, particularly the blue men, and with the Nodites.

67:6.7 (760.2) Notwithstanding the terrible setback of rebellion there were many good strains of biologic promise on earth.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Van and Amadon continued the work of fostering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human race, carrying forward the physical evolution of man until it reached that culminating attainment which warranted the dispatch of a Material Son and Daughter to Urantia.

67:6.8 (760.3) Van and Amadon remained on earth

지 지구 위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그들은 예루셈으로 옮겨졌고, 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조절자와 재(再)연합하였다. 반은 구성중인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의 계시되지 않은 운명과 파라다이스 성취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명령을 기다리면서 유란시아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루시퍼가 유란시아에 있는 칼리가스티아를 지지한 후, 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호소하였을 때, 반이 주장하는 모든 점들에 대하여 지지한다는 즉각적인 결정을 별자리 아버지들이 보냈던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던 동안에 통신을 위한 행성 순환회로들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오직 최근에 이르러서야 실제적인 이 판결이, 유란시아의 고립 이후로부터 줄곧 고립되어 있는 교대(交代) 에너지 전송자의 소유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중도자들의 조사 결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발견이 없었다면, 이 결정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별자리 순환회로들에게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행성간 통신에서의 이 명백한 우연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에너지 전송자들이 지능정보를 받아들이고 보낼 수는 있지만, 통신을 직접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타니아의 법률상 기록들에 적혀 있는 반에 대한 엄밀한 법적 해석 지위는, 에덴시아 아버지들에 의해 내려졌던 이 판결이 예루셈에 기록될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제 7 장. 죄의 먼 반향

빛에 대한 창조체의 의지적이고 끊임없는 거부로 인한 개인적 (구심적) 결과들은, 필연적이고도 개별적이며, 오직 신(神)과 그리고 개인적 창조체에게만 관련된다. 그러한 혼을-파괴하는 사악한 불의의 수확은 사악하게 불의한 의지 창조체의 내적 결실이다.

그러나 죄의 외부적인 반향에서는 그렇지 않다: 죄가 포용되는 미(未)개인적 (원심적) 결과들은, 필연적이고도 집단적이며, 그러한 사건들의 영향-범위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모든 창조체에게 관련된다.

행성 관리-행정 체제가 붕괴된 후 50,000년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관련사들은 너무나 질서 문란하고 퇴락하여, 칼리가스티아가 도착하기 350,0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진화 지위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진보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다른 방면들에서는 대부분의 기초가 상실되었다.

죄는 그 효과에서 순전히 지역적인 경우는 결코 없다. 우주들의 행정-관리적 구역은 유기체와

until shortly after the arrival of Adam and Eve. Some years thereafter they were translated to Jerusem, where Van was reunited with his waiting Adjuster. Van now serves in behalf of Urantia while awaiting the order to go forward on the long, long trail to Paradise perfection and the unrevealed destiny of the assembling Corps of Mortal Finality.

67:6.9 (760.4) It should be recorded that, when Van appeal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fter Lucifer had sustained Caligastia on Urantia, the Constellation Fathers dispatched an immediate decision sustaining Van on every point of his contention. This verdict failed to reach him because the planetary circuits of communication were severed while it was in transit. Only recently was this actual ruling discovered lodged in the possession of a relay energy transmitter where it had been marooned ever since the isolation of Urantia. Without this discovery, made as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s of the Urantia midwayers, the release of this decision would have awaited the restoration of Urantia to the constellation circuits. And this apparent accident of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was possible because energy transmitters can receive and transmit intelligence, but they cannot initiate communication.

67:6.10 (760.5) The technical status of Van on the legal records of Satania was not actually and finally settled until this ruling of the Edentia Fathers was recorded on Jerusem.

7. REMOTE REPERCUSSIONS OF SIN

67:7.1 (760.6) The personal (centripetal) consequences of the creature's willful and persistent rejection of light are both inevitable and individual and are of concern only to Deity and to that personal creature. Such a soul-destroying harvest of iniquity is the inner reaping of the iniquitous will creature.

67:7.2 (761.1) But not so with the external repercussions of sin: The impersonal (centrifugal) consequences of embraced sin are both inevitable and collective, being of concern to every creature functioning within the affect-range of such events.

67:7.3 (761.2) By fifty thousand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earthly affairs were so disorganized and retarded that the human race had gained very little over the general evolutionary status existing at the time of Caligastia's arrival thre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previously. In certain respects progress had been made; in other directions much ground had been lost.

67:7.4 (761.3) Sin is never purely local in its effects. The administrative sectors of the universes are

같다; 한 개인성의 곤경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와 공유되어야만 한다. 죄, 실체를 향한 개인의 태도를 이루는 것은 우주 가치들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관계된 차원에서 자체의 선천적인 부정적인 수확을 드러내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일으키는 생각이나 악한-행동 또는 죄로 가득한 계획에서 나오는 총 결과는 오직 실재행위의 차원에서만 체험된다. 우주 법칙에 대한 역행은,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적인 체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영역 안에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죄는, 오직 그것이 존재 전체의 태도일 때, 그것이 마음의 선택과 혼의 의지를 상징할 때에만, 개인성 생존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잉태하고 있다.

악과 죄는 그 결과들을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 안에 쏟아 붓는다. 그리고 때로는 우주 실체의 특정한 차원에서 영적 진보를 지연시키기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의 죄도 다른 존재가 지닌 개인성 생존에서의 신성한 권한을 실현하는 것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 영원한 생존은 각 개별존재 자신의 혼에 의한 선택과 그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만 위협받을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의 죄는 생물학적 진화를 지체시킨 것은 거의 없었지만 한편, 아담의-유전성에서의 충만한 혜택을 필사 종족들에게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 죄는 지적 발전과 도덕적 성장, 사회적 진보, 그리고 집단적 영적 달성을 엄청나게 지연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을 알고자 선택하고 자신의 신성한 뜻을 진심에서 행하는 그 어떤 개별존재에 의한 최고의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칼리가스티아는 반란을 일으켰고, 아담과 이브는 임무를 불이행하였지만, 그 후에 유란시아에서 태어나는 어떤 필사자도 자기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 이러한 큰 실책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의 반란 이후에 유란시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상의-대가를 치러왔다, 그러나 그러한 혼들의 미래의 복지가 결코 영원한-위태로움이 되지는 않았다.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치명적 영적 결핍의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죄는, 그것이 비록 행정-관리적, 지능적, 그리고 사회적 권역에 멀리-퍼지는 반향을 미치지만,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영적 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대제왕들이 생기도록 버려두는 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들 지역적 동요들이 크게 우주에서 반영되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들 동요들이 유익하게 밖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항상 식별할 수 있다.

제 8 장. 반란에서의 인간 영웅

루시퍼 반란은 사타니아에 있는 다양한 세계들에서 용감한 많은 존재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았지만; 구원자별의 기록들은 아마돈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선동의 물결을 멋지게 물리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을 향해 변함없이 헌신하였다는 점에서

organismal; the plight of one personality must to a certain extent be shared by all. Sin, being an attitude of the person toward reality, is destined to exhibit its inherent negativistic harvest upon any and all related levels of universe values. But the full consequences of erroneous thinking, evil-doing, or sinful planning are experienced only on the level of actual performance. The transgression of universe law may be fatal in the physical realm without seriously involving the mind or impairing the spiritual experience. Sin is fraught with fatal consequences to personality survival only when it is the attitude of the whole being, when it stands for the choosing of the mind and the willing of the soul.

67.7.5 (761.4) Evil and sin visit their consequences in material and social realms and may sometimes even retard spiritual progress on certain levels of universe reality, but never does the sin of any being rob another of the realization of the divine right of personality survival. Eternal survival can be jeopardized only by the decisions of the mind and the choice of the soul of the individual himself.

67.7.6 (761.5) Sin on Urantia did very little to delay biologic evolution, but it did operate to deprive the mortal races of the full benefit of the Adamic inheritance. Sin enormously retards intellectual development, moral growth, social progress, and mass spiritual attainment. But it does not prevent the highest spiritual achievement by any individual who chooses to know God and sincerely do his divine will.

67.7.7 (761.6) Caligastia rebelled, Adam and Eve did default, but no mortal subsequently born on Urantia has suffered in his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because of these blunders. Every mortal born on Urantia since Caligastia's rebellion has been in some manner time-penalized, but the future welfare of such souls has never been in the least eternity-jeopardized. No person is ever made to suffer vital spiritual deprivation because of the sin of another. Sin is wholly personal as to moral guilt or spiritual consequences, notwithstanding its far-flung repercussions in administrative, intellectual, and social domains.

67.7.8 (761.7) While we cannot fathom the wisdom that permits such catastrophes, we can always discern the beneficial outworking of these local disturbances as they are reflected out upon the universe at large.

8. THE HUMAN HERO OF THE REBELLION

67.8.1 (761.8) The Lucifer rebellion was withstood by many courageous beings on the various worlds of Satania; but the records of Salvington portray Amadon as the outstanding character of the entire system in his glorious rejection of the flood tides of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미가엘의 최극위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같이 지켜나갔다—전체 체계 중에서도 그를 두드러진 인물로 꼽았다.

이러한 중대한 활동행위들이 일어날 때, 나는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었으며, 안돈의-종족이었고 기원적이며 실험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한 때 반(半)야만인이었던 이 사람이 날마다 놀라울 정도로 확고부동하였고 탁월하게 헌신적이었으며 더없이 훌륭하게 충성하였다는 구원자별의 방송들을 살살이 읽으면서 내가 체험하였던 흥분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다.

7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사타니아의 반란과 관련하여, 에덴시아로부터 구원자별을 거쳐 심지어는 유버사에 이르기까지, 하급(下級)의 모든 천상(天上) 생명이 처음으로 질문한 것은, “유란시아의 아마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굳게 서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만약 루시퍼의 반란이 그 지역 체계와 그 타락한 세계들을 방해하였다면, 이 아들과 그의 잘못된 인도된 동반자들의 실패가 놀라시아택 별자리의 진보를 일시적으로 꺾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의 불충한 상급자들에 의해서 가해진 그토록 극심하고도 불리한 압력에 직면한 우주 경영과 관리-행정의 높은 개념들을 향하여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한 143명의 굳게 결심한 그의 연관-동료 무리들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용기를 복돋우는 행위를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한 그 소식의 효과가 얼마나 컸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루시퍼 반란으로 인한 모든 악과 불행의 총계보다도, 네바돈 우주와 오르본톤 초우주 안에서 훨씬 더 훌륭하게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을 동원하기 위한, 그리고 상승 진보하는 필사자들의 평범한 육체—조금도 중요되지 않는 아마돈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필사자들—로부터 미래 세계의 신비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이 광대한 집단들을 모집하기 위한 아버지의 우주적 계획의 지혜를 최고로 장엄하게 빛내고 있으며 아름답게 감동을 주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sedition and in his unswerving devotion to Van — they stood together unmoved in their loyalty to the supremacy of the invisible Father and his Son Michael.

67:8.2 (762.1) At the time of these momentous transactions I was stationed on Edentia, and I am still conscious of the exhilaration I experienced as I perused the Salvington broadcasts which told from day to day of the unbelievable steadfastness, the transcendent devotion, and the exquisite loyalty of this onetime semisavage springing from the experimental and original stock of the Andonic race.

67:8.3 (762.2) From Edentia up through Salvington and even on to Uversa, for seven long years the first inquiry of all subordinate celestial life regarding the Satania rebellion, ever and always, was: “What of Amadon of Urantia, does he still stand unmoved?”

67:8.4 (762.3) If the Lucifer rebellion has handicapped the local system and its fallen worlds, if the loss of this Son and his misled associates has temporarily hampered the progres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then weigh the effect of the far-flung presentation of the inspiring performance of this one child of nature and his determined band of 143 comrades in standing steadfast for the higher concepts of univers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n the face of such tremendous and adverse pressure exerted by his disloyal superiors. And let me assure you, this has already done more good in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than can ever be outweighed by the sum total of all the evil and sorrow of the Lucifer rebellion.

67:8.5 (762.4) And all this is a beautifully touching and superbly magnificent illumination of the wisdom of the Father's universal plan for mobilizing the Corps of Mortal Finality on Paradise and for recruiting this vast group of mysterious servants of the future largely from the common clay of the mortals of ascending progression — just such mortals as the impregnable Amadon.

67:8.6 (762.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68 편 문명의 여명

⇨ 067

유랜시아 책

06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8 편 문명의 여명

섹션

소개

제 1 장. 보호적 사회화(社會化)

제 2 장. 사회적 진보에서의 요소들

제 3 장. 귀신 두려움의 사회화 영향

제 4 장. 사회관례의 진화

제 5 장. 토지 기법—유지관리 기술들

제 6 장. 문화의 진화

PAPER 68

THE DAWN OF CIVILIZ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Protective Socialization

2. Factors in Social Progression

3. Socializing Influence of Ghost Fear

4. Evolution of the Mores

5. Land Techniques — Maintenance Arts

6. Evolution of Culture

소개

이것은, 동물적 실존보다 거의 나을 것이 없는 지위로부터, 중간을 이루는 시대를 거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류의 고등 종족들 가운데에서 실제적 문명이 진화되었던 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종족이 앞으로 나아갔던 길고 긴 투쟁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문명은 종족마다 획득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손들은 문화적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새롭게 그 교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문명의 우월한 본질특성들은—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직접적인 상속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취들은 오직 사회적인 유산에 대한 깨우친 보존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협동적 계층의 사회적인 진화는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인류는 300,000 년 동안 집단 활동에 대한 관념 속에서 양육되었다. 모든 인종들 중에서 청색 인종들은 이러한 초기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적색 인종은 다소 얻었고, 흑색 인종이 전체 중에서 가장 적게 얻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황색 인종과 백색 인종들은 유랜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사

INTRODUCTION

68:0.1 (763.1)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narrative of the long, long forward struggle of the human species from a status that was little better than an animal existence, through the intervening ages, and down to the later times when a real, though imperfect, civilization had evolved among the higher races of mankind.

68:0.2 (763.2) Civilization is a racial acquirement; it is not biologically inherent; hence must all children be reared in an environment of culture, while each succeeding generation of youth must receive anew its education. The superior qualities of civilization — scientific, philosophic, and religious — are not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direct inheritance. These cultural achievements are preserved only by the enlightened conservation of social inheritance.

68:0.3 (763.3) Social evolution of the co-operative order was initiated by the Dalamatia teachers, and for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mankind was nurtured in the idea of group activities. The blue man most of all profited by these early social teachings, the red man to some extent, and the black man least of all. In more recent times the yellow race and the white race have presented the

회적 발전을 나타내었다.

제 1 장. 보호적 사회화(社會化)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종종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원시인에게는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과, 자기 이웃들에게 사회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 못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초기 종족들은 슬픈 체험을 겪음으로서 “연합 안에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 신분의 즉각적 실현에서 길을 막고 서있는 것은, 자연적인 형제적으로 끌어당김의 이러한 모자람이다.

일찍부터 관계적-연합은 살아남기 위한 대가가 되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이 닥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어떤 부족 표시를 간직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카인의 시대에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표시를 갖지 않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명은 폭력에 의한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의 대비책이 되었으며, 반면에 그 대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구들에 복잡함으로써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시 사회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개념 위에 그리고 관계적-연합하여 안전을 증진시킨다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그리고 마지 못해서 하는 협동에 의해서 오랜 세월의 순환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다.

원시 인간 존재들은, 단순한 개인 단위들의 집합보다는 집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되었다. 100명의 남자들이 연합하여 힘을 합쳐 일하면 거대한 돌도 움직일 수 있다; 잘 훈련된 다수의 평화 수호자들은 흥분한 군중을 자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개개인들의 단순한 관계적-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인 협동자들의 조직을 이룬 결과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협동은 사람의 자연적인 특색이 아니며; 처음에는 두려움을 통하여 협동하는 것을 배웠고, 나중에는 시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차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들을 방지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찍부터 스스로를 원시적 형태의 사회로 조직화하였던 그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도 더욱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그리하여 문명은 여러 번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서 꾸준히 진보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수많은 실책들이 인간 문명을 전혀 정지시키거나 파괴시키지 못한 것은 오로지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유지된 가치 있는 것들이 더욱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사회가 아주 최근의 현상이라는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아프리카의 부시

most advanced social development on Urantia.

1. PROTECTIVE SOCIALIZATION

68:1.1 (763.4) When brought closely together, men often learn to like one another, but primitive man was not naturally overflowing with the spirit of brotherly feeling and the desire for social contact with his fellows. Rather did the early races learn by sad experience that “in union there is strength”; and it is this lack of natural brotherly attraction that now stands in the way of immediat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on Urantia.

68:1.2 (763.5) Association early became the price of survival. The lone man was helpless unless he bore a tribal mark which testified that he belonged to a group which would certainly avenge any assault made upon him. Even in the days of Cain it was fatal to go abroad alone without some mark of group association. Civilization has become man's insurance against violent death, while the premiums are paid by submission to society's numerous law demands.

68:1.3 (763.6) Primitive society was thus founded on the reciprocity of necessity and on the enhanced safety of association. And human society has evolved in agelong cycles as a result of this isolation fear and by means of reluctant co-operation.

68:1.4 (763.7) Primitive human beings early learned that groups are vastly greater and stronger than the mere sum of their individual units. One hundred men united and working in unison can move a great stone; a score of well-trained guardians of the peace can restrain an angry mob. And so society was born, not of mere association of numbers, but rather as a result of the *organization* of intelligent co-operators. But co-operation is not a natural trait of man; he learns to co-operate first through fear and then later because he discovers it is most beneficial in meeting the difficulties of time and guarding against the supposed perils of eternity.

68:1.5 (764.1) The peoples who thus early organized themselves into a primitive society became more successful in their attacks on nature as well as in defense against their fellows; they possessed greater survival possibilities; hence has civilization steadily progressed on Urantia, notwithstanding its many setbacks. And it is only because of the enhancement of survival value in association that man's many blunders have thus far failed to stop or destroy human civilization.

68:1.6 (764.2) That contemporary cultural society is a rather recent phenomenon is well shown by the

먼 인종 그리고 피그미 인종과 같은 원시적 사회가 지금-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진보가 늦은 이 민족들 속에서, 초기의 집단적 호전성과 개인적인 의심 그리고 모든 원시 종족들의 전반적인 특색이었던 매우 반사회적(反社會的)인 다른 본성들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회성이 없는 고대 민족들 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개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보다 유력하고 힘센 조직과 관계적-연합체들과는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임을 역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매 40내지 50마일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며 진보가 늦고 의심이 많은 이 반사회적 종족들은,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병합된 교육과 인종들을 증진시키는 아담의-후예 집단들의 후기 활동들이 없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현대의 표현은 무지한 망상, 한 때의 허구였던 “황금기”를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황금기에 대한 전설의 유일한 근거는 달라마시아와 에덴이라는 역사적 사실뿐이다. 그러나 이런 향상된 그 사회들은 유토피아 꿈들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 2 장. 사회적 진보에서의 요소들

문명화된 사회는, 사람이 자신의 고립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적인 애정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의 어떤 원시적 집단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태도는 초기 부족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문명 세계 속의 개별존재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면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명 그 자체가 분투와 투쟁이라는 모순된 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침체 상태의 따분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는 분투임을 입증하고 있다.

지성 차원은 문화 진보의 정도에 상당히 기여하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각 개별존재의 생활양식에서 위험 요소를 줄여주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줄이고 기쁨 요소를 증대시키는 속도에 따라 그만큼 진보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사회 본체는, 그 목표가 자아-유지인가 아니면 자아-충족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의 목표—생존 또는 소멸—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간다. 자아-유지는 사회를 기원시키며 반면에, 지나친 자아-충족은 문명을 파괴한다.

사회는 자아-영속, 자아-유지 그리고 자아-충족에 관련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아-실현은 대다수 문화적 집단들의 당장의 목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present-day survival of such primitive social conditions as characterize the Australian natives and the Bushmen and Pygmies of Africa. Among these backward peoples may be observed something of the early group hostility, personal suspicion, and other highly antisocial traits which were so characteristic of all primitive races. These miserable remnants of the nonsocial peoples of ancient times bear eloquent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e natural individualistic tendency of man cannot successfully compete with the more potent and powerfu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of social progression. These backward and suspicious antisocial races that speak a different dialect every forty or fifty miles illustrate what a world you might now be living in but for the combined teaching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later labors of the Adamic group of racial uplifters.

68:1.7 (764.3) The modern phrase, “back to nature,” is a delusion of ignorance, a belief in the reality of the onetime fictitious “golden age.” The only basis for the legend of the golden age is the historic fact of Dalamatia and Eden. But these improved societies were far from the realization of utopian dreams.

2. FACTORS IN SOCIAL PROGRESSION

68:2.1 (764.4) Civilized society is the result of man's early efforts to overcome his dislike of *isolation*.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mutual affection, and the present turbulent state of certain primitive groups well illustrates what the early tribes came up through. But though the individuals of a civilization may collide with each other and struggle against one another, and though civilization itself may appear to be an inconsistent mass of striving and struggling, it does evidence earnest striving, not the deadly monotony of stagnation.

68:2.2 (764.5) While the level of intelligence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rate of cultural progress, society is essentially designed to lessen the risk element in the individual's mode of living, and it has progressed just as fast as it has succeeded in lessening pain and increasing the pleasure element in life. Thus does the whole social body push on slowly toward the goal of destiny — extinction or survival — depending on whether that goal is self-maintenance or self-gratification. Self-maintenance originates society, while excessive self-gratification destroys civilization.

68:2.3 (764.6) Society is concerned with self-perpetuation, self-maintenance, and self-gratification, but human self-realization is worthy of becoming the immediate goal of many cultural

자연적인 사람에게 있는 무리 짓는 본능은, 유란시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조직의 발전을 이룩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타고난 집단적 성향이 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성 대부분은 습득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들이 초기에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요소는 양식에 대한 열망과 성(性)적인 사랑이었다; 이러한 본능적인 충동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세계와 공유하도록 강요하였다. 인간 존재들로 하여금 억지로 함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두 가지 다른 감정들은 공허함과 두려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엄밀하게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였다.

역사는 사람의 오랫동안의 양식을 위한 투쟁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인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에만 생각하였다;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최초의 자아-부정, 자아-단련이었다. 사회가 커짐에 따라, 양식에 대한 열망만이 상호 관계적-연합의 유일한 자극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열망들, 다양한 필요에 대한 실현들, 모든 것이 인류의 연합을 더욱 긴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인류가 필요로 한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0세기의 서구 문명 세계는, 인간들의 지나치게 배가된 욕구와 열망들 그리고 사치로 인한 너무 지나친 부담에 짓눌려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멀리까지 미치는 상호-연관과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이라는 가장 위험한 위상들 중의 하나인 긴장 상태를 견디어 내고 있는 중이다.

굶주림과 공허감 그리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사회적인 곤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성(性)적 충족은 과도기이었고 가끔 일어나는 것이었다. 성적인 충동 그 자체만이, 원시적인 남자와 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가정은 빈번한 성적 충동이 박탈되었을 때 가지는 남성들의 성적 불안함에서 그리고 인간 여성의 현실적인 모성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 여성은 모든 남성 고등동물들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생활을 하였다. 어떤 도움도 없는 어린 아기의 현존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 일찍부터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인은 정착된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일굴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시대부터, 여자가 사는 곳이 항상 가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여인은 일찍부터,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성(性)적 열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음식 필요성 때문에, 진화하는 사회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여자는 자아-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여인은 양식을 제공하는 자였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었으며, 난폭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심한 학대를 견디려고 하는 동행자였고, 바람직한 이 모든 특색들 외에도, 여인은 언제까지나-제공하는 성적 충족의 수단이었다.

groups.

68:2.4 (765.1) The herd instinct in natural man is hardly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social organization as now exists on Urantia. Though this innate gregarious propensity lies at the bottom of human society, much of man's sociability is an acquirement. Two great influences which contributed to the early association of human beings were food hunger and sex love; these instinctive urges man shares with the animal world. Two other emotions which drove human beings together and *held* them together were vanity and fear, more particularly ghost fear.

68:2.5 (765.2) History is but the record of man's agelong food struggle. *Primitive man only thought when he was hungry*; food saving was his first self-denial, self-discipline. With the growth of society, food hunger ceased to be the only incentive for mutual association. Numerous other sorts of hunger, the realization of various needs, all led to the closer association of mankind. But today society is top-heavy with the overgrowth of supposed human needs. Occidental civiliza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groans wearily under the tremendous overload of luxury and the inordinate multiplication of human desires and longings. Modern society is enduring the strain of one of its most dangerous phases of far-flung interassociation and highly complicated interdependence.

68:2.6 (765.3) Hunger, vanity, and ghost fear were continuous in their social pressure, but sex gratification was transient and spasmodic. The sex urge alone did not impel primitive men and women to assume the heavy burdens of home maintenance. The early home was founded upon the sex restlessness of the male when deprived of frequent gratification and upon that devoted mother love of the human female, which in measure she shares with the females of all the higher animals. The presence of a helpless baby determined the early differentiation of male and female activities; the woman had to maintain a settled residence where she could cultivate the soil. And from earliest times, where woman was has always been regarded as the home.

68:2.7 (765.4) Woman thus early became indispensable to the evolving social scheme, not so much because of the fleeting sex passion as in consequence of *food requirement*; she was an essential partner in self-maintenance. She was a food provider, a beast of burden, and a companion who would stand great abuse without violent resentment, and in addition to all of these desirable traits, she was an ever-present means of sex gratification.

문명사회 속에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가치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가정은 평화로운 집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었는데,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의 반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진화 안에서, 결혼의 기능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의 실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보험이었다; 자아-유지와 자아-영속은 가정의 실제 목적이었다. 자아-충족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성(性)적 관계적-연합을 보장하는 장려 수단으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본성은 생존을 요구하지만, 문명의 기법은 결혼의 즐거움과 가정생활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만약 허영심이 자부심, 열정 그리고 명예를 덮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면, 이는 그러한 감정들이 그들 앞에서 뽐낼 청중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성향들이 인간 관계적-연합들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붙잡아 주는 지를 분간해 볼 수도 있다. 허영심은 자신의 다른 감정들,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고 스스로 만족시킬 사회적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충동들과 이내 연관된다. 감정들의 이 집단이 예술, 예식 그리고 각종 형태의 운동경기과 경쟁의 초기 시작에서의 기원이 되었다.

허영심은 사회가 탄생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계시들이 있을 시기에, 허영심 많은 세대의 어긋난 투쟁들은 고도로 특화된 문명의 복잡한 구조 전체를 궁지에 빠뜨리고 침몰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다. 즐거움-요구는 오래 전부터 배고픔-요구를 대치시켜 왔다; 자아-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회적 목표들은 자아-충족을 위한 저급하고 위협적인 형태들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자아-유지는 사회를 이룩하고 있지만; 고삐 풀린 자아-충족은 어김없이 문명을 파괴한다.

제 3 장. 귀신 두려움의 사회화 영향

원시적인 욕망들은 기원적 사회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묶게 하였고 그 실존에 관한 어떤 인간 이외의 양상을 전해 주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생리적으로 기원된 것인데 즉: 육체적인 고통, 만족되지 못한 열망,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심한 종류의 공포였다.

인간 사회의 진화에 있어서 단일한 요소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귀신에 대한 꿈이었을 것이다. 비록 대부분의 꿈들이 원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크게 혼란시켰을 지라도, 귀신에

68:2.8 (765.5) Almost everything of lasting value in civilization has its roots in the family. The family was the first successful peace group, the man and woman learning how to adjust their antagonisms while at the same time teaching the pursuits of peace to their children.

68:2.9 (765.6) The function of marriage in evolution is the insurance of race survival, not merely the realization of personal happiness; self-maintenance and self-perpetuation are the real objects of the home. Self-gratification is incidental and not essential except as an incentive insuring sex association. Nature demands survival, but the arts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pleasures of marriage and the satisfactions of family life.

68:2.10 (765.7) If vanity be enlarged to cover pride, ambition, and honor, then we may discern not only how these propensitie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uman associations, but how they also hold men together, since such emotions are futile without an audience to parade before. Soon vanity associated with itself other emotions and impulses which required a social arena wherein they might exhibit and gratify themselves. This group of emotions gave origin to the early beginnings of all art, ceremonial, and all forms of sportive games and contests.

68:2.11 (766.1) Vanity contributed mightily to the birth of society; but at the time of these revelations the devious strivings of a vainglorious generation threaten to swamp and submerge the whole complicated structure of a highly specialized civilization. Pleasure-want has long since superseded hunger-want; the legitimate social aims of self-maintenance are rapidly translating themselves into base and threatening forms of self-gratification. Self-maintenance builds society; unbridled self-gratification unfailingly destroys civilization.

3. SOCIALIZING INFLUENCE OF GHOST

FEAR

68:3.1 (766.2) Primitive desires produced the original society, but ghost fear held it together and imparted an extrahuman aspect to its existence. Common fear was physiological in origin: fear of physical pain, unsatisfied hunger, or some earthly calamity; but ghost fear was a new and sublime sort of terror.

68:3.2 (766.3) Probably the greatest single factor in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was the ghost dream. Although most dreams greatly perturbed the primitive mind, the ghost dream actually

대한 꿈은 초기 인류를 실제적으로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고, 미신적으로 꿈을 꾸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허구적인 위험들에 대항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진지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서로 손을 잡게 하였다. 귀신에 대한 꿈은 마음을 소유한 인간 유형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초기 현상들 중의 하나였다. 동물들은 죽음 이후의 생존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러한 귀신의 요소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회는 근본적인 필요성들과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들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문명에 하나의 새로운 요소, 각 개별존재의 기본적인 필요들로부터 밖으로 뻗어 나가고 멀리까지 퍼지는 그리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두려움을 제공하였다. 죽음 시체로부터 떠난 영들에 대한 무서움은 하나의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의 두려움,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포심이 노출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초기 시대의 산만한 사회 계층이 더욱 속속들이 단련 하도록 기여하였고 고대의 원시 집단들을 보다 잘 통제하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어리석은 미신은, 그 중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비(非)존재적이고 초자연적인 미신적 두려움을 통하여, 후대에 “지혜의 근원인 주님께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다. 진화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들은, 계시에 의하여 영감을 받는 신(神)에 대한 외경심으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다. 귀신을 두려워한 초기의 예배종파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이 되었고, 그 후로 먼 훗날까지 인류는 영성(靈性)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분투해왔다.

굶주림과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뭉치도록 이끌었고; 허영심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함께 묶어주었다. 그러나 평화를 조장하는 계시들의 영향이 없다면, 이 감정들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상호-연관에서 생기는 의심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을 감당할 수 없다. 초인간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사회의 긴장감은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폭발하게 되며, 사회를 동원시키는 바로 이들 영향력—굶주림, 사랑, 허영심, 그리고 두려움—은 인류가 전쟁과 학살로 뛰어들도록 도모한다.

인간 종족의 평화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며; 그것은 계시된 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보적인 종족들의 누적된 체험으로부터 유래되지만, 특별히 평화의 영주인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된다.

제 4 장. 사회관례의 진화

모든 현대 사회적 관례들은 너희의 야만적인 조상들의 원시적인 관습들이 진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의 풍습들은 과거의 관습들이 변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습관은 개별존재적인 것이고, 관습은 집단적인 것이다; 집단적인 관습들은 풍속 또는 부족적 전통들—큰 덩어리의 풍습들—로 발

terrorized early men, driving these superstitious dreamers into each other's arms in willing and earnest association for mutual protection against the vague and unseen imaginary dangers of the spirit world. The ghost dream was one of the earliest appearing differences between the animal and human types of mind. Animals do not visualize survival after death.

68:3.3 (766.4) Except for this ghost factor, all society was founded on fundamental needs and basic biologic urges. But ghost fear introduced a new factor in civilization, a fear which reaches out and away from the elemental needs of the individual, and which rises far above even the struggles to maintain the group. The dread of the departed spirits of the dead brought to light a new and amazing form of fear, an appalling and powerful terror, which contributed to whipping the loose social orders of early ages into the more thoroughly disciplined and better controlled primitive groups of ancient times. This senseless superstition, some of which still persists, prepared the minds of men, through superstitious fear of the unreal and the supernatural, for the later discovery of “the fear of the Lord which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baseless fears of evolution are designed to be supplanted by the awe for Deity inspired by revelation. The early cult of ghost fear became a powerful social bond, and ever since that far-distant day mankind has been striving more or less for the attainment of spirituality.

68:3.4 (766.5) Hunger and love drove men together; vanity and ghost fear held them together. But these emotions alone, without the influence of peace-promoting revelations, are unable to endure the strain of the suspicions and irritations of human interassociations. Without help from superhuman sources the strain of society breaks down upon reaching certain limits, and these very influences of social mobilization — hunger, love, vanity, and fear — conspire to plunge mankind into war and bloodshed.

68:3.5 (766.6) The peace tendency of the human race is not a natural endowment; it is derived from the teachings of revealed religion, from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progressive races, but more especially from the teachings of Jesus, the Prince of Peace.

4. EVOLUTION OF THE MORES

68:4.1 (767.1) All modern social institutions arise from the evolution of the primitive customs of your savage ancestors; the conventions of today are the modified and expanded customs of yesterday. What habit is to the individual, custom is to the group; and group customs develop into folkways

전된다. 지금-현재 인간 사회의 관례들 전체는 이러한 초기의 시조들로부터 초라하게 기원되었다.

사회관례가 집단적인 삶을 대규모적인 생활에 맞추기 위한 노력에서 기원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회관례는 사람의 최초의 사회적 제도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적인 반응들 전체는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힘을 누리기 위하여 탐구하는 노력에서 발생되었다. 언어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풍속은 항상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기원되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상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리하여 종교와 윤리라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이 형성되도록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것들은 다음에 참범할 수 없는 사회관례와 관습들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보존되었다. 초기에 많은 것을 제정하고 결정화를 이루게 했던 한 가지 사회관례는, 죽은 자는 그 사람이 살았고 죽었던 여정에 대하여 질투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육신으로 살 때 자량이 되었던 삶의 규칙들을 감히 가볍게 멸시하여 다루면서, 살아가는 필사자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황색 인종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존경하는 것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발달한 원시종교는 사회관례를 안정시킴으로써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진보된 문명은 두려움에 속박된 상태와 미신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인류를 점점 더 해방시켜 왔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달라마시아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사회관례의 예식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희생자로 간혀 있었다; 원시 야만인은 끝임없는 예식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으로부터 밤에 자기 동굴로 돌아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꼭 그렇게—자기 부족의 풍속에 일치되도록—해야만 하였다. 그는 풍습의 폭정에 대하여 노예였다; 그의 일생은 자유롭게나 자발적이거나 독창적인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보다 높은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실존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보가 없었다.

초기의 사람은 관습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게 붙들려 있었다; 야만인은 관례에 진실 그대로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의 사고(思考)와 개선된 방법의 생활을 시도하려는 변화된 유형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따금씩 생겨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타성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는 문명의 파괴적인 잘못된 조절로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생물학적 안전 제동장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습들은 순전히 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의 진화는 계속되어야만 하였다. 급진적인 혁명에 의해서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명의 연속성에 있어서

or tribal traditions — mass conventions. From these early beginnings all of the institutions of present-day human society take their humble origin.

68:4.2 (767.2)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mores originated in an effort to adjust group living to the conditions of mass existence; the mores were man's first social institution. And all of these tribal reactions grew out of the effort to avoid pain and humiliation while at the same time seeking to enjoy pleasure and power. The origin of folkways, like the origin of languages, is always unconscious and unintentional and therefore always shrouded in mystery.

68:4.3 (767.3) Ghost fear drove primitive man to envision the supernatural and thus securely laid the foundations for those powerful social influences of ethics and religion which in turn preserved inviolate the mores and customs of socie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one thing which early established and crystallized the mores was the belief that the dead were jealous of the ways by which they had lived and died; therefore would they visit dire punishment upon those living mortals who dared to treat with careless disdain the rules of living which they had honored when in the flesh. All this is best illustrated by the present reverence of the yellow race for their ancestors. Later developing primitive religion greatly reinforced ghost fear in stabilizing the mores, but advancing civilization has increasingly liberated mankind from the bondage of fear and the slavery of superstition.

68:4.4 (767.4) Prior to the liberating and liberalizing instruction of the Dalamatia teachers, ancient man was held a helpless victim of the ritual of the mores; the primitive savage was hedged about by an endless ceremonial. Everything he did from the time of awakening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he fell asleep in his cave at night had to be done just so — in accordance with the folkways of the tribe. He was a slave to the tyranny of usage; his life contained nothing free, spontaneous, or original. There was no natural progress toward a higher mental, moral, or social existence.

68:4.5 (767.5) Early man was mightily gripped by custom; the savage was a veritable slave to usage; but there have arisen ever and anon those variations from type who have dared to inaugurate new ways of thinking and improved methods of living. Nevertheless, the inertia of primitive man constitutes the biologic safety brake against precipitation too suddenly into the ruinous maladjustment of a too rapidly advancing civilization.

68:4.6 (767.6) But these customs are not an unmitigated evil; their evolution should continue. It is nearly fatal to the continuance of civilization to undertake their wholesale modification by radical

거의 파멸적인 것이나 다름없다. 관습은 문명을 함께 묶어주는 연속적인 생명 역할을 해 왔다. 인류 역사의 경로는 폐기되는 관습들과 진부한 사회적 실천 관행들 중에서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향상되고 더욱 알맞은 관습들을 제외시켜 지키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사회관례를 내버리는 문명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존속되지 못하였다.

어느 사회의 생존은 주로 그 사회관례의 진보적인 진화에 달려있다. 진화적인 관습의 진보는 실험에 대한 욕구에서 발생된다; 새로운 관념들이 제시된다.—경쟁이 일어난다. 진보하는 문명은 진보적인 관념을 포용하고, 지속된다; 시간과 환경은 결국 보다 알맞은 집단이 살아남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사회의 조직 속에서 각각의 분리되고 고립된 변화가 더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란시아 문명이 오랫동안 진보적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퇴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 5 장. 토지 기법—유지관리 기술들

땅은 사회가 공연되는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들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토지 상황에 순응시켜야만 한다. 사회관례의 진화는 항상 땅과 사람의 비율에 의존된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토지 기법, 즉 유지관리 기술과 사람의 삶의 표준을 더하면 풍속의 총합, 즉 사회관례이다. 그리고 일생에 요구되는 것에 대한 사람이 조절한 것의 합계는, 사람의 문화적 문명이다.

가장 초기의 인간 문화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강들을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전진하는 문명의 행진에는 네 개의 큰 단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채집 단계. 양식에 대한 속박과 굶주림은 최초의 산업 조직 형태, 원시적인 양식-채집 작업을 형성시켰다. 어떤 때에는 땅에 떨어진 양식을 찾는 그러한 굶주린 자들의 행렬이 10마일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원시적인 방랑기의 문화였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들이 따르는 삶의 형태이다.

2. 수렵 단계. 무기를 만드는 도구들이 발명됨에 따라서 사람은 사냥꾼이 되었고, 그리하여 양식에 노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 위험한 전투에서 손을 심하게 다치자, 생각이 깊은 안돈-사람은, 팔 대신에 긴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 끝에는 손 대신에 단단한 부싯돌 조각을 힘줄로 붙들어 매는 관념을 다시 발견하였다. 여러 부족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들을 독자적으로 발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망치 모양의 연장들은 인간 문명에서의 위대한 전진 단계 중의

revolution. Custom has been the thread of continuity which has held civilization together. The path of human history is strewn with the remnants of discarded customs and obsolete social practices; but no civilization has endured which abandoned its mores except for the adoption of better and more fit customs.

68:4.7 (767.7) The survival of a society depends chiefly on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its mores. The process of custom evolution grows out of the desire for experimentation; new ideas are put forward — competition ensues. A progressing civilization embraces the progressive idea and endures; time and circumstance finally select the fitter group for survival. But this does not mean that each separate and isolated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human society has been for the better. No! indeed no! for there have been many, many retrogressions in the long forward struggle of Urantia civilization.

5. LAND TECHNIQUES — MAINTENANCE ARTS

68:5.1 (768.1) Land is the stage of society; men are the actors. And man must ever adjust his performances to conform to the land situation. The evolution of the mores is always dependent on the land-man ratio.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its discernment. Man's land technique, or maintenance arts, plus his standards of living, equal the sum total of the folkways, the mores. And the sum of man's adjustment to the life demands equals his cultural civilization.

68:5.2 (768.2) The earliest human cultures arose along the rivers of the Eastern Hemisphere, and there were four great steps in the forward march of civilization. They were:

68:5.3 (768.3) 1. *The collection stage.* Food coercion, hunger, led to the first form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primitive food-gathering lines. Sometimes such a line of hunger march would be ten miles long as it passed over the land gleaned food. This was the primitive nomadic stage of culture and is the mode of life now followed by the African Bushmen.

68:5.4 (768.4) 2. *The hunting stage.* The invention of weapon tools enabled man to become a hunter and thus to gain considerable freedom from food slavery. A thoughtful Andonite who had severely bruised his fist in a serious combat rediscovered the idea of using a long stick for his arm and a piece of hard flint, bound on the end with sinews, for his fist. Many tribes made independent discoveries of this sort, and these various forms of hammers represented one of the great forward

하나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원주민들은 이 단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청색 인종들은 숙련된 사냥꾼과 덫을 놓는 자가 되었고, 강에 담을 만들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며, 남는 것은 겨울 양식을 위하여 건조시키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묘한 함정과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사용되었지만, 좀 더 원시 종족일수록 좀 더 큰 동물은 사냥하지 않았다.

3. 목축 단계. 이러한 문명 현상은 동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아랍인과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아주 최근까지도 목축을 하는 민족에 속하고 있다.

목축 생활로 말미암아 양식에 노예 되었던 상태로부터 구원을 점점 잘 제공하였고,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증식, 자신이 소유한 짐승 때의 증식에 의존하여 사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었다.

목축 이전(以前)의 사회는 이성간의 협동의 사회였지만, 동물 사육이 확산되면서 여인들은 사회적 노예 상태의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동물성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남자들의 의무였고, 식물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신의 실존에서의 목축 시대로 들어가게 되자, 여자들의 존엄성은 엄청나게 위아졌다. 여자는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가꾸기 위하여 여전히 수고를 해야만 하였지만, 남자는 풍부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가축 떼를 돌보지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와 관계없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 되어갔다; 목축 시대 전체를 통하여, 여자의 지위는 점점 더 낮아졌다. 이 시대가 끝나가면서, 여자가 인간 동물이나 다름없는 지위가 되었고, 일하는 것과 인간 자손을 낳는 일이 맡겨졌으며, 가축 때가 노동을 하고 새끼를 낳도록 기대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목축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가축들을 무척 소중하게 다루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보다 더 깊은 애정을 발전시킬 수 없었으니, 모든 것이 더욱 딱한 일이었다.

4. 경작 단계. 이 시대는 식물들을 길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높은 유형의 물질문명에 해당된다.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둘 모두 원예 기술과 경작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었으며, 채소를 가꾸는 일은 이 시대에 가장 진보된 문화였다. 식물들의 성장은 모든 인류 종족들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

농업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배가되었다.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문화 단계의 목축 생활과 합쳐질 수 있었다. 세 개의 단계가 겹쳐졌을 때, 남자들은 사냥을 하였고 여자들은 땅을 경작하였다.

목축을 하는 자들과 땅을 경작하는 자들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다. 사냥꾼과 목축을 하는

steps in human civilization. Today some Australian natives have progressed little beyond this stage.

68:5.5 (768.5) The blue men became expert hunters and trappers; by fencing the rivers they caught fish in great numbers, drying the surplus for winter use. Many forms of ingenious snares and traps were employed in catching game, but the more primitive races did not hunt the larger animals.

68:5.6 (768.6) 3. *The pastoral stage.* This phase of civilization was made possible b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The Arabs and the natives of Africa are among the more recent pastoral peoples.

68:5.7 (768.7) Pastoral living afforded further relief from food slavery; man learned to live on the interest of his capital, the increase in his flocks; and this provided more leisure for culture and progress.

68:5.8 (768.8) Prepastoral society was one of sex co-operation, but the spread of animal husbandry reduced women to the depths of social slavery. In earlier times it was man's duty to secure the animal food, woman's business to provide the vegetable edibles. Therefore, when man entered the pastoral era of his existence, woman's dignity fell greatly. She must still toil to produce the vegetable necessities of life, whereas the man need only go to his herds to provide an abundance of animal food. Man thus became relatively independent of woman; throughout the entire pastoral age woman's status steadily declined. By the close of this era she had become scarcely more than a human animal, consigned to work and to bear human offspring, much as the animals of the herd were expected to labor and bring forth young. The men of the pastoral ages had great love for their cattle; all the more pity they could not have developed a deeper affection for their wives.

68:5.9 (769.1) 4. *The agricultural stage.* This era was brought about by the domestication of plants, and it represents the highest type of material civilization. Both Caligastia and Adam endeavored to teach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Adam and Eve were gardeners, not shepherds, and gardening was an advanced culture in those days. The growing of plants exerts an ennobling influence on all races of mankind.

68:5.10 (769.2) Agriculture more than quadrupled the land-man ratio of the world. It may be combined with the pastoral pursuits of the former cultural stage. When the three stages overlap, men hunt and women till the soil.

68:5.11 (769.3) There has always been friction between the herders and the tillers of the soil. The

자들은 투쟁적이고 호전적이었다; 경작을 하는 자들은 평화를 더욱 사랑하는 태도를 가졌다. 동물들과의 관계적-연합은 투쟁과 무력을 촉구하였고; 식물들과의 관계적-연합은 인내와 침착성과 평화를 서서히 가르쳐 주었다. 농업과 산업주의는 평화로운 활동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적 활동에서 그러하듯이, 두 산업들 모두의 약점은 자극과 모험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사냥을 하는 단계로부터 목축의 단계를 거쳐 농업을 하는 사유지 단계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적인 문명의 각 단계마다 떠돌이 생활은 점점 더 감소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산업이 농업을 보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농업을 하지 않는 시민 계급들이 점점 더 도시화를 이루었고 숫자가 점점 더 배가되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적 발전이라도 반드시 견고한 농업적 기반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영도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산업 시대가 계속될 희망이 사라지고 만다.

제 6 장. 문화의 진화

사람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다; 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마침내는 확실히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글자 그대로도 틀림없는 말이다. 사람이 당하였던 그리고 당하고 있는 땅에 대한 기본적인 투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원시 인간 존재들이 이룩하였던 최초의 사회적 관계적-연합은 이러한 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땅에 대한 사람의 비율은 모든 사회적 문명의 기초가 된다.

사람의 지성은,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땅의 소산(所産)을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자손의 자연적인 증가는 통제되었고, 그리하여 문화적 문명 건설에 재료와 여가를 제공하였다.

인간 사회는, 인구가 토지 경작 기술에 따라서 정비례하고, 또 반대로 주어진 생활수준에 반비례하도록 변하여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사람들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심지어 오늘날보다도 더욱 심하게, 그 두 가지의 예상 가치를 결정하였다. 풍부한 땅—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던 시대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대한 필요성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는 더욱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땅이 부족하고 그에 연관되어 인구가 과밀하게 된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생명이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역병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hunter and herder were militant, warlike; the agriculturist is a more peace-loving type. Association with animals suggests struggle and force; association with plants instills patience, quiet, and peace. Agriculture and industrialism are the activities of peace. But the weakness of both, as world social activities, is that they lack excitement and adventure.

68:5.12 (769.4) Human society has evolved from the hunting stage through that of the herders to the territorial stage of agriculture. And each stage of this progressive civilization was accompanied by less and less of nomadism; more and more man began to live at home.

68:5.13 (769.5) And now is industry supplementing agriculture, with consequently increased urbanization and multiplication of nonagricultural groups of citizenship classes. But an industrial era cannot hope to survive if its leaders fail to recognize that even the highest social developments must ever rest upon a sound agricultural basis.

6. EVOLUTION OF CULTURE

68:6.1 (769.6) Man is a creature of the soil, a child of nature; no matter how earnestly he may try to escape from the land, in the last reckoning he is certain to fail. “Dust you are and to dust shall you return” is literally true of all mankind. The basic struggle of man was, and is, and ever shall be, for land. The first social associations of primitive human beings were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se land struggles. The land-man ratio underlies all social civilization.

68:6.2 (769.7) Man's intelligence, by means of the arts and sciences, increased the land yield; at the same time the natural increase in offspring was somewhat brought under control, and thus was provided the sustenance and leisure to build a cultural civilization.

68:6.3 (769.8) Human society is controlled by a law which decrees that the population must vary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rts and inversely with a given standard of living. Throughout these early ages, even more than at present,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as concerned men and land determined the estimated value of both. During the times of plentiful land — unoccupied territory — the need for men was great, and therefore the value of human life was much enhanced; hence the loss of life was more horrifying. During periods of land scarcity and associated overpopulation, human life became comparatively cheapened so that war, famine, and pestilence were regarded with less

땅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될 때, 필연적으로 투쟁이 재연되고; 인간 자연본성의 가장 나쁜 특색들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땅의 소산의 증대와 기계적인 기술들의 확장 그리고 인구의 감소 등은 모두 인간 자연본성의 더 좋은 면이 개발되도록 육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변방 개척자 사회는 인간성에서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면을 발달시킨다; 순수 예술과 참된 과학적 진보는, 영적인 문화와 함께, 땅-사람의 비율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있는 농업과 산업 인구에 의해 지원될 때, 보다 큰 생활 중심지에서 가장 잘 번성해 왔다. 도시들은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을 항상 몇 배로 만든다.

가족의 크기는 생활 기준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아왔다. 생활 기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크기는 고정된 상태 또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점점 줄어든다.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 내내, 생활 기준은 단순한 양과 대조해서, 살아남는 인구의 본질특성을 결정해 왔다. 생활 기준의 지역적인 등급은 새로운 사회적 특권계급, 새로운 사회관계가 태동되도록 한다. 생활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심하게 호화스럽게 되면, 그들은 급속도로 자멸한다. 특권계급은 조밀한 인구에 의해서 야기되는 날카로운 경쟁의 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초기 종족들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 관행들에게 종종 의존하곤 하였는데, 모든 원시적 부족들은 불구자와 병약한 아이들을 죽였다. 여자아이들은 아내로 구매되기 전에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다. 둘 이상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마술에 의한 결과 또는 부정(不貞)을 탓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쌍둥이의 아버지는 대개 그 중의 하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성(性)의 쌍둥이는 살려주었다. 쌍둥이에 대한 이러한 금기(禁忌)가 한 때 보편적으로 퍼지기도 하였지만, 안돈-사람들의 사회관계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민족들은 쌍둥이를 항상 좋은 행운의 징조라고 여겼다.

많은 종족들은 낙태 기법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실천 관행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되게 되었다. 미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지만, 보다 문명화된 집단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생아들이 그 소년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많은 원시 씨족(氏族)들이 낙태와 유아 살해 두 가지 실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절되었다. 그러나 사회관계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일단 것을 먹인 후에는 아이들이 거의 살해되지 않았다.-어머니 애정은 그토록 매우 강하다.

concern.

68:6.4 (770.1) When the land yield is reduced or the population is increased, the inevitable struggle is renewed; the very worst traits of human nature are brought to the surface. The improvement of the land yield, the extension of the mechanical arts, and the reduction of population all ten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better side of human nature.

68:6.5 (770.2) Frontier society develops the unskilled side of humanity; the fine arts and true scientific progress, together with spiritual culture, have all thrived best in the larger centers of life when supported by a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pulation slightly under the land-man ratio. Cities always multiply the power of their inhabitants for either good or evil.

68:6.6 (770.3) The size of the family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the standards of living. The higher the standard the smaller the family, up to the point of established status or gradual extinction.

68:6.7 (770.4) All down through the ages the standards of living have determined the quality of a surviving population in contrast with mere quantity. Local class standards of living give origin to new social castes, new mores. When standards of living become too complicated or too highly luxurious, they speedily become suicidal. Caste is the direct result of the high social pressure of keen competition produced by dense populations.

68:6.8 (770.5) The early races often resorted to practices designed to restrict population; all primitive tribes killed deformed and sickly children. Girl babies were frequently killed before the times of wife purchase. Children were sometimes strangled at birth, but the favorite method was exposure. The father of twins usually insisted that one be killed since multiple births were believed to be caused either by magic or by infidelity. As a rule, however, twins of the same sex were spared. While these taboos on twins were once well-nigh universal, they were never a part of the Andonite mores; these peoples always regarded twins as omens of good luck.

68:6.9 (770.6) Many races learned the technique of abortion, and this practice became very comm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boo on childbirth among the unmarried. It was long the custom for a maiden to kill her offspring, but among more civilized groups these illegitimate children became the wards of the girl's mother. Many primitive clans were virtually exterminated by the practice of both abortion and infanticide. But regardless of the dictates of the mores, very few children were ever destroyed after having once been suckled — maternal affection is too strong.

삼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원시적 인구 통제 방법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기르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있다. 최근에도, 다섯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마다 먹어버리는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아직도 특정한 불길한 날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고 있으며, 전체 신생아들 중에서 약 25%가 죽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인구 과밀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전쟁이 줄어들고 과학에 의해서 인간의 질병이 점점 더 통제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이르면, 세계지도층의 지혜에는 엄청난 시험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유란시아의 통치자들이, 표준 이상(以上)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증가하는 표준 이하의 집단들의 양극단 대신에 평균적인 또는 안정된 인간이 증가되는 것을 육성할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를 가질 것인가? 보통 사람이 육성되어야만 한다; 보통 사람은 문명의 중심이고, 인종의 돌연변이 천재들이 탄생되는 원천이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은 사회의 통제 밑에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상위 유형의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노예처지가 되고 속박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이, 동물 차원 이상의 지능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낮은-등급의 수요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위 차원의 산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인구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언젠가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68:6.10 (770.7)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there persist remnants of these primitive population controls. There is a tribe in Australia whose mothers refuse to rear more than two or three children. Not long since, one cannibalistic tribe ate every fifth child born. In Madagascar some tribes still destroy all children born on certain unlucky days, resulting in the death of about twenty-five per cent of all babies.

68:6.11 (770.8) From a world standpoint, overpopulation has never been a serious problem in the past, but if war is lessened and science increasingly controls human diseases, it may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e near future. At such a time the great test of the wisdom of world leadership will present itself. Will Urantia rulers have the insight and courage to foster the multiplication of the average or stabilized human being instead of the extremes of the supernormal and the enormously increasing groups of the subnormal? The normal man should be fostered; he is the backbone of civilization and the source of the mutant geniuses of the race. The subnormal man should be kept under society's control; no more should be produced than are required to administer the lower levels of industry, those tasks requiring intelligence above the animal level but making such low-grade demands as to prove veritable slavery and bondage for the higher types of mankind.

68:6.12 (77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sometime stationed on Urantia.]

제 69 편 원시 인간 제도

⇨ 068

유랜시아 책

070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69 편 원시 인간 제도

섹션

소개

제 1 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

제 2 장. 근면성의 시작

제 3 장. 노동의 전문화

제 4 장. 거래의 시작

제 5 장. 자본(資本)의 시작

제 6 장. 문명과 불의 관계

제 7 장. 동물의 활용

제 8 장. 문명의 한 요소인 노예 제도

제 9 장. 사유 재산

소개

감정적으로는, 사람은 해학(諧謔)과 예술 그리고 종교를 느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면에서 그의 동물 조상들을 능가한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은 연장을 만드는 자이며, 의사 전달자이며, 제도 구축자라는 것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인간 존재들이 사회 집단들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을 때, 그러한 집합체는 반드시, 마침내 제도화를 이룩하는 특정한 활동 경향들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이 세운 제도들의 대부분은, 노동이 절약됨과 동시에 집단적 안전을 증진시키는 어떤 것에 공헌하는 것을 입증해 왔다.

문명화된 사람은 자신의 확립된 제도들이 갖는 성격과 안정성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지만, 인간적 제도들 전체는 금기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종교에 의해서 위엄을 갖추어 가면서 축적되어진 과거의 사회관례들에 불과하다. 그러한 유산(遺産)들은 전통이 되기 시작하고 전통은 궁극적으로 관행으로 변형된다.

PAPER 69

PRIMITIVE HUMAN INSTITUTIONS

SECTIONS

Introduction

1. Basic Human Institutions

2. The Dawn of Industry

3. The Specialization of Labor

4. The Beginnings of Trade

5. The Beginnings of Capital

6. Fire in Relation to Civilization

7. The Utilization of Animals

8. Slavery as a Factor in Civilization

9. Private Property

INTRODUCTION

^{69:0.1 (772.1)} EMOTIONALLY, man transcends his animal ancestors in his ability to appreciate humor, art, and religion. Socially, man exhibits his superiority in that he is a toolmaker, a communicator, and an institution builder.

^{69:0.2 (772.2)} When human beings long maintain social groups, such aggregations always result in the creation of certain activity trends which culminate in institutionalization. Most of man's institutions have proved to be laborsaving while at the same time contributing something to the enhancement of group security.

^{69:0.3 (772.3)} Civilized man takes great pride in the character, stability, and continuity of his established institutions, but all human institutions are merely the accumulated mores of the past as they have been conserved by taboos and dignified by religion. Such legacies become traditions, and traditions ultimately metamorphose into conventions.

제 1 장. 기본적인 인간 제도

모든 인간적 제도들이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과도한 발달은 반드시 개별존재의 우수성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성은 빛을 잃고 독창력은 퇴보된다. 사람은 발전하는 문명이 산출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제도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인간의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 된다:

1. 자아-유지의 제도들. 이 제도들에는 양식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천 관행들 그리고 그에 연관된 자아-보존의 본능들이 들어 있다. 그것들은 산업, 재산, 이익을 위한 전쟁, 그리고 사회의 모든 규제적인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이르기나 늦거나, 두려움 본능은 금기, 협약 그리고 종교적 제재를 수단으로 생존하는, 이들 제도의 확립을 육성한다. 그러나 두려움, 무지 그리고 미신은 모든 인간 제도들의 초기 기원과 뒤이어진 발달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2. 자아-영속의 제도들. 이것들은 성에 대한 굶주림, 모성 본능 그리고 종족들의 고등 감정들에서 자라나온 사회의 제도들이다. 그 속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가정생활, 교육, 윤리 그리고 종교에서의 사회적 보호 수단을 포용하고 있다. 그것들에는 결혼 관습, 방어를 위한 전쟁, 그리고 주택 건축이 포함된다.

3. 자아-충만의 제도들. 이것들은 허영심의 성향들과 자부심의 감정들로부터 자라난 실천 관행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옷 입는 관습과 개인적 치장, 사회적 풍습, 영광을 위한 전쟁, 춤, 오락, 놀이, 그리고 관능적 만족을 위한 다른 위상들을 포용한다. 그러나 문명이 자아-충만에 대한 뚜렷한 제도를 진화시킨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러한 세 가지 집단의 사회적 실천 관행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 이들 여러 제도들은 하나의 단일 사회적 기능구조로 기능하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조직을 나타낸다.

제 2 장. 근면성의 시작

원시적 형태의 산업은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서서히 자라나게 되었다. 초기에 살았던 사람은, 식량난이 닥치는 때를 대비하여 풍부한 수확이 있는 기간 동안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어떤 동물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검소함과 원시적 산업이 동트기 전에

1. BASIC HUMAN INSTITUTIONS

69:1.1 (772.4) All human institutions minister to some social need, past or present, notwithstanding that their overdevelopment unfailingly detracts from the worth-whileness of the individual in that personality is overshadowed and initiative is diminished. Man should control his institutions rather than permit himself to be dominated by these creations of advancing civilization.

69:1.2 (772.5) Human institutions are of three general classes:

69:1.3 (772.6) 1. *The institutions of self-maintenance.* These institutions embrace those practices growing out of food hunger and its associated instincts of self-preservation. They include industry, property, war for gain, and all the regulative machinery of society. Sooner or later the fear instinct fosters the establishment of these institutions of survival by means of taboo, convention, and religious sanction. But fear, ignorance, and superstition have played a prominent part in the early origin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all human institutions.

69:1.4 (772.7) 2. *The institutions of self-perpetuation.* These are the establishments of society growing out of sex hunger, maternal instinct, and the higher tender emotions of the races. They embrace the social safeguards of the home and the school, of family life, education, ethics, and religion. They include marriage customs, war for defense, and home building.

69:1.5 (772.8) 3. *The institutions of self-gratification.* These are the practices growing out of vanity proclivities and pride emotions; and they embrace customs i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 social usages, war for glory, dancing, amusement, games, and other phases of sensual gratification. But civilization has never evolved distinctive institutions of self-gratification.

69:1.6 (772.9) These three groups of social practices are intimately interrelated and minutely interdependent the one upon the other. On Urantia they represent a complex organization which functions as a single social mechanism.

2. THE DAWN OF INDUSTRY

69:2.1 (773.2) Primitive industry slowly grew up as an insurance against the terrors of famine. Early in his existence man began to draw lessons from some of the animals that, during a harvest of plenty, store up food against the days of scarcity.

69:2.2 (773.3) Before the dawn of early frugality and

는, 대부분의 일반 부족은 궁핍과 실제 고통을 겪었다. 초기 사람은 자기 양식을 위하여 동물 세계 전체와 경쟁해야만 했다. 경쟁의-중력은 언제나 사람을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 내린다; 가난은 사람의 자연적인 처지이며 그리고 가혹적인 처지이다. 부(富)는 자연적인 선물이 아니다; 노동과 지식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원시인은 관계적-연합의 장점을 깨닫는 데 느리지 않았다. 관계적-연합은 조직을 형성하였고,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최초의 결과는 노동의 분화(分化)와, 그로 인한 시간과 물질의 직접적인 절약이었다. 이러한 노동의 전문화는 압력에 대한 적응력—저항이 약해지는 길을 추구함—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원시의 야만인들은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거나 자발적으로 한 실제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 그들의 순응은 필요에서의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

원시인은 힘든 일을 싫어하였고, 심각한 위험에 닥치지 않는 한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노동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요소, 특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한다는 관념은, 전적으로 현대적 관념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초기 사람의 자연적으로는 활발하지 않은 종족들을 산업의 큰길로 몰아붙인 것은, 실존을 위한 맹렬한 분투와 계속 높아지는 생활기준에 대한 2중의 요구였다.

노동, 의도적인 노력이 사람을 짐승과 구분시키는데, 그의 노력은 주로 본능적인 것이다.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축복이다. 영주의 참모진은 모두 일을 하였다; 유란시아에서 행해지는 육체적인 노동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 아담은 원예가였으며; 히브리인들의 하느님도 일을 하였다—그는 창조자였고 만유(萬有)를 유지하는 분이었다. 히브리인들은 산업을 최극으로 높이 평가한 최초의 부족이었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한 최초의 민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종교들 대부분은 놀고 지내는 초기 관념으로 되돌아갔다. 주피터는 술 마시고 흥청대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 부처는 한가하게 묵상하는 것을 신봉하는 자로 바뀌었다.

산길 부족들은 열대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제법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술을 신봉하는 게으른 자들과 일하기를 주장하는 자들—장래를 대비하는 자들—사이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있었다.

인간의 첫 번째 선견지명은 불, 물 그리고 음식의 저장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본성적으로-태어난 도박꾼이었다; 항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였고, 이러한 초기 시대 동안 참아내는 실천으로부터 생긴 성공들을 너무나 자주 모두 주문에서 기인된다고 여겼다. 마술은 선견지명, 자아-부정, 산업에 느리게 길을 비켜주었다.

primitive industry the lot of the average tribe was one of destitution and real suffering. Early man had to compete with the whole animal world for his food. Competition-gravity ever pulls man down toward the beast level; poverty is his natural and tyrannical estate. Wealth is not a natural gift; it results from labor, knowledge, and organization.

69:2.3 (773.4) Primitive man was not slow to recognize the advantages of association. Association led to organization, and the first result of organization was division of labor, with its immediate saving of time and materials. These specializations of labor arose by adaptation to pressure — pursuing the paths of lessened resistance. Primitive savages never did any real work cheerfully or willingly. With them conformity was due to the coercion of necessity.

69:2.4 (773.5) Primitive man disliked hard work, and he would not hurry unless confronted by grave danger. The time element in labor, the idea of doing a given task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s entirely a modern notion. The ancients were never rushed. It was the double demands of the intense struggle for existence and of the ever-advancing standards of living that drove the naturally inactive races of early man into avenues of industry.

69:2.5 (773.6) Labor, the efforts of design, distinguishes man from the beast, whose exertions are largely instinctive. The necessity for labor is man's paramount blessing. The Prince's staff all worked; they did much to ennoble physical labor on Urantia. Adam was a gardener; the God of the Hebrews labored — he was the creator and upholder of all things. The Hebrews were the first tribe to put a supreme premium on industry; they were the first people to decree that “he who does not work shall not eat.” But many of the religions of the world reverted to the early ideal of idleness. Jupiter was a reveler, and Buddha became a reflective devotee of leisure.

69:2.6 (773.7) The Sangik tribes were fairly industrious when residing away from the tropics. But there was a long, long struggle between the lazy devotees of magic and the apostles of work — those who exercised foresight.

69:2.7 (773.8) The first human foresight was directed toward the preservation of fire, water, and food. But primitive man was a natural-born gambler; he always wanted to get something for nothing, and all too often during these early times the success which accrued from patient practice was attributed to charms. Magic was slow to give way before foresight, self-denial, and industry.

제 3 장. 노동의 전문화

3. THE SPECIALIZATION OF LABOR

원시 사회의 노동 분할이 처음에는 자연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후에는 사회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 노동에 있어서 초기에 전문화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성(性)에 기초된 전문화. 여성의 일은 어린 아이의 선택적인 현존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아기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여인들은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은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남성은 사냥꾼과 전사가 되었는데, 특정한 기간 동안 일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모든 시대들마다, 금기의 제약에 의해서 여인들은 자기 분야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남성은 가장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더 알맞은 일을 선택하였고, 일상적인 단조로운 일은 여성에게 맡겼다. 남성은 언제든지 여성의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지만, 여성은 남성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둘 모두 함께 일하였던 것이다.

2. 나이와 질병의 결과로 발생한 변형. 이러한 차이들은 다음 단계의 노동 분할을 결정하였다. 노인들은 일찍부터 연장과 무기를 만드는 일에 배치되었다. 나중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일이 그들에게 할당되었다.

3. 종교에 기초한 분화. 주술사(呪術師)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면제받은 최초의 인간 존재들이었다; 전문적인 계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대장장이들은 주술사들에 필적할 만큼 요술쟁이로 취급되는 작은 집단들이었다. 금속을 다루는 그들의 작업 기술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흰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과 “검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들”로 인하여 백색 마술과 흑색 마술에 대한 초기 믿음들이 기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나중에 선한 귀신들과 악한 귀신들,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미신 속에 포함되었다.

대장장이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린 최초의 비종교적 집단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있을 동안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대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급, 원시 사회의 정치꾼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들이 야비하게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대장장이들은 널리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으며, 주술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부추겼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시합에서 종교(미신)가 승리를 거두었다. 대장장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주거지역의 외곽에서, 최초의 여인숙, 공공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4. 주인과 노예. 노동에 있어서 그 다음의 분화는 정복자와 피(被)정복자의 관계에서 발생되었고, 그것은 인간 노예제도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5.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질들에 기초된 분

69:3.1 (773.9) The divisions of labor in primitive society were determined first by natural, and then by social, circumstances. The early order of specialization in labor was:

69:3.2 (774.1) 1. *Specialization based on sex.* Woman's work was derived from the selective presence of the child; women naturally love babies more than men do. Thus woman became the routine worker, while man became the hunter and fighter, engaging in accentuated periods of work and rest.

69:3.3 (774.2) All down through the ages the taboos have operated to keep woman strictly in her own field. Man has most selfishly chosen the more agreeable work, leaving the routine drudgery to woman. Man has always been ashamed to do woman's work, but woman has never shown any reluctance to doing man's work. But strange to record, both men and women have always worked together in building and furnishing the home.

69:3.4 (774.3) 2. *Modification consequent upon age and disease.* These differences determined the next division of labor. The old men and cripples were early set to work making tools and weapons. They were later assigned to building irrigation works.

69:3.5 (774.4) 3. *Differentiation based on religion.* The medicine men were the first human beings to be exempted from physical toil; they were the pioneer professional class. The smiths were a small group who competed with the medicine men as magicians. Their skill in working with metals made the people afraid of them. The “white smiths” and the “black smiths” gave origin to the early beliefs in white and black magic. And this belief later became involved in the superstition of good and bad ghosts, good and bad spirits.

69:3.6 (774.5) Smiths were the first nonreligious group to enjoy special privileges. They were regarded as neutrals during war, and this extra leisure led to their becoming, as a class, the politicians of primitive society. But through gross abuse of these privileges the smiths became universally hated, and the medicine men lost no time in fostering hatred for their competitors. In this first contest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religion (superstition) won. After being driven out of the villages, the smiths maintained the first inns, public lodginghouses, on the outskirts of the settlements.

69:3.7 (774.6) 4. *Master and slave.* The next differentiation of labor grew out of the relations of the conqueror to the conquered, and that meant the beginning of human slavery.

69:3.8 (774.7) 5. *Differentiation based on diverse*

화. 노동의 더 많은 분할은 인간들이 선천적인 재능의 차이에 의해서 더욱 조장되었는데; 모든 인간 존재들이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업에서 최초의 전문가들은 부싯돌을 가공하는 자들과 석공(石工)들이었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들이 출현하였다. 나중에는 집단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가족들과 씨족들이 특정한 종류의 노동에 전념하였다. 가장 오래된 사제 특권계급들 중 하나의 기원은, 부족의 주술사와는 별도로, 칼-만드는 자들 전문가 가족을 미신적으로 우러러 받드는 것으로부터 기인되었다.

산업에서 최초의 집단 전문가들은 암염(巖鹽) 수출업자와 도공(陶工)들이었다. 여인들은 단순한 모양의 질그릇을 만들었고 남자들은 장식을 곁들인 모양을 만들었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여자들이 바느질과 천 짜는 일을 맡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남자들이 하였다.

초기 상인들은 주로 여성이었는데; 그들은 첩자로 고용되었고, 거래하는 일은 덤이었다. 마침내 무역이 확대되자, 여인들은 중개인—도매상—으로 활동하였다. 이윽고 상인 계급이 형성되어, 자기들의 봉사에 대한 수수료와 이익을 부과하게 되었다. 집단들이 늘어나면서 물물교환은 상업으로 발전되었다; 상품 교환에 뒤이어 숙련된 기술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 4 장. 거래의 시작

계약에 의한 결혼에 이어서 생포에 의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물 교환에 의한 거래 이후에는 습격에 의한 강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언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초기 실천 관행과 현대적 교환 방식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해적 행위가 있었다.

최초의 물물교환은 무장된 상인들이 중간 지점에 자기들의 상품을 남겨둠으로써 수행되었다. 여인들은 최초의 시장들을 점유하였고; 최초의 무역업자들이었으며, 이것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 반면에; 남자들은 전사였기 때문이었다. 무역 거래소, 무역업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갈 수 없도록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은 성벽이 매우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무언의 물물교환을 위해 가져다 놓은 물건들을 지키는 일에 미신적인 상징물이 이용되었다. 그러한 시장은 도둑질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졌고, 물물교환이나 구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미신적인 상징물의 보호로 인하여 물건들은 언제나 안전하였다. 초기의 무역업자들은 자기 부족들 간에는 철저히 정직하였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을 속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초기의 히브리인들도 이방인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였다.

무언의 물물교환이 오랜 세월 계속된 후에,

physical and mental endowments. Further divisions of labor were favored by the inherent differences in men; all human beings are not born equal.

69:3.9 (774.8) The early specialists in industry were the flint flakers and stone masons; next came the smiths. Subsequently group specialization developed; whole families and clans dedicated themselves to certain sorts of labor. The origin of one of the earliest castes of priests, apart from the tribal medicine men, was due to the superstitious exaltation of a family of expert swordmakers.

69:3.10 (774.9) The first group specialists in industry were rock salt exporters and potters. Women made the plain pottery and men the fancy. Among some tribes sewing and weaving were done by women, in others by the men.

69:3.11 (774.10) The early traders were women; they were employed as spies, carrying on commerce as a side line. Presently trade expanded, the women acting as intermediaries — jobbers. Then came the merchant class, charging a commission, profit, for their services. Growth of group barter developed into commerce; and following the exchange of commodities came the exchange of skilled labor.

4. THE BEGINNINGS OF TRADE

69:4.1 (775.1) Just as marriage by contract followed marriage by capture, so trade by barter followed seizure by raids. But a long period of piracy intervened between the early practices of silent barter and the later trade by modern exchange methods.

69:4.2 (775.2) The first barter was conducted by armed traders who would leave their goods on a neutral spot. Women held the first markets; they were the earliest traders, and this was because they were the burden bearers; the men were warriors. Very early the trading counter was developed, a wall wide enough to prevent the traders reaching each other with weapons.

69:4.3 (775.3) A fetish was used to stand guard over the deposits of goods for silent barter. Such market places were secure against theft; nothing would be removed except by barter or purchase; with a fetish on guard the goods were always safe. The early traders were scrupulously honest within their own tribes but regarded it as all right to cheat distant strangers. Even the early Hebrews recognized a separate code of ethics in their dealings with the gentiles.

69:4.4 (775.4) For ages silent barter continued before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신성시되는 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 매매 장소들은, 신전(神殿)이 세워진 최초의 장소가 되었으며, 어떤 지방들에서는 나중에 “피난의 도시”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 매매 장소에 당도한 도피자들은 누구든지 안전하였고 공격받을 염려가 없었다.

최초의 거래 단위는 소맥과 다른 곡식들이었다. 최초의 교환 수단은 물고기 또는 염소였다. 나중에는 암소가 물물교환의 단위가 되었다.

현대의 필기 기술은 초기 무역 거래 기록들에서 기원되었다; 사람의 최초 문서는 거래-진흥 서류, 소금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일어난 전쟁들의 대부분은 부식돌과 소금 그리고 금속들과 같은 자연적인 매장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였다. 부족들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은 매장된 소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약을 맺은 이러한 장소들은, 서로 친근하고 평화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부족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필기 기술은, “소식 막대기”, 매듭을 만든 끈, 그림으로 쓰기, 상형문자, 그리고 조가비를 구슬로 엮은 띠 등과 같은 단계를 거쳐, 초기의 기호화된 자모(字母) 문자로 발전되었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원시적 형태로부터 진화되어, 보발(步撥)꾼, 동물 기수(騎手), 철도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였고, 전보와 전화 그리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착상과 보다 나은 방법들은 고대의 상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로 퍼져 나갔다. 모험과 손을 잡은 상업은 탐험과 발견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운송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상업은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제 5 장. 자본(資本)의 시작

자본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유보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저축은 유지와 생존을 위한 대비책의 한 형태이다. 양식 저장은 자아-통제를 개발하였고 자본과 노동에 대한 최초의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양식을 소유한 자는, 만일 그것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뚜렷한 이점(利點)을 가졌다.

초기의 은행가는 그 부족 중에서 용감한 남자였다. 그는 그 집단의 보물들을 보관하였고, 그 씨족(氏族) 전체는 공격의 사건이 있을 때, 그의 집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 개별존재들의 자본과 집단의 재산은 즉각적으로 무리 조직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예방조치들이 고안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웃 부족들의 토지와 재산을 탈취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무리 조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실천 관행으로 되었다.

men would meet, unarmed, on the sacred market place. These same market squares became the first places of sanctuary and in some countries were later known as “cities of refuge.” Any fugitive reaching the market place was safe and secure against attack.

69:4.5 (775.5) The first weights were grains of wheat and other cereals. The first medium of exchange was a fish or a goat. Later the cow became a unit of barter.

69:4.6 (775.6) Modern writing originated in the early trade records; the first literature of man was a trade-promotion document, a salt advertisement. Many of the earlier wars were fought over natural deposits, such as flint, salt, and metals. The first formal tribal treaty concerned the intertribalizing of a salt deposit. These treaty spots afforded opportunity for friendly and peaceful interchange of ideas and the intermingling of various tribes.

69:4.7 (775.7) Writing progressed up through the stages of the “message stick,” knotted cords, picture writing, hieroglyphics, and wampum belts, to the early symbolic alphabets. Message sending evolved from the primitive smoke signal up through runners, animal riders, railroads, and airplanes, as well as telegraph, telephone, and wireless communication.

69:4.8 (775.8) New ideas and better methods were carried around the inhabited world by the ancient traders. Commerce, linked with adventure, led to exploration and discovery. And all of these gave birth to transportation. Commerce has been the great civilizer through promoting the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

5. THE BEGINNINGS OF CAPITAL

69:5.1 (775.9) Capital is labor applied as a renunciation of the present in favor of the future. Savings represent a form of maintenance and survival insurance. Food hoarding developed self-control and created the first problems of capital and labor. The man who had food, provided he could protect it from robbers, had a distinct advantage over the man who had no food.

69:5.2 (775.10) The early banker was the valorous man of the tribe. He held the group treasures on deposit, while the entire clan would defend his hut in event of attack. Thus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capital and group wealth immediately led to military organization. At first such precautions were designed to defend property against foreign raiders, but later on it became the custom to keep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practice by inaugurating raids on the property and wealth of neighboring tribes.

자본의 축적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충동은 다음과 같다:

1. 굶주림—선견과 연관됨. 양식 절약과 저장은 힘을 의미하였고, 충분한 선견지명을 가짐으로써 장래의 필요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양식 저장은 굶주림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원시 형태의 사회관계 전체 몸체는,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복종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2. 가족사랑—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려는 욕망. 자본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을 저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적 수요의 일부는 자기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다.

3. 허영심—자기 재산 축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바람. 여분의 옷은 남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최고 상징물들 중의 하나였다. 수집하는 허영심은 일찍부터 사람의 자부심을 자극하였다.

4. 지위—사회적 정치적 명성을 얻고자하는 열망. 상업화된 귀족 신분, 특권 계급이 되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봉사 수행에 의존하거나 돈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권리가 일찍부터 생겨났다.

5. 힘—주인이 되고자하는 갈망. 재산을 빌려주는 행위, 이러한 고대의 시대에 통용된 매 년 100%의 대부 이자율은, 노예를 만드는 수단으로 자행되었다. 돈을 빌려준 자들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비군으로 조직함으로써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었다. 노예화된 종들은 축적할 수 있는 재산들 중에서 가장 초기 형태에 속하였으며, 고대에는 빚으로 인한 노예 상태가 확장되어 그 시대까지도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6. 죽은 자의 귀신에 대한 공포심—보호를 위한 사제 사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음 단계의 삶을 통하여 향상되도록 촉진시키는 일에 자신들의 재산이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예물을 사제들에게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큰 부자가 되었고; 고대의 자본가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되었다.

7. 성(性) 충동—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아내를 사려는 열망. 사람의 최초 거래 형태는 여자를 교환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말의 거래보다 훨씬 전이었다. 그러나 성(性)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은 사회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한 왕래는 과거에도 지금도 종족의 치욕이고, 그것은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에 가정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월한 민족들의 생물학적 적합성을 오염시켰다.

8. 자아-충족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 어떤 사람들은 부귀가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얻으려고 한다. 초기 사람(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의 사람들도)은 사치를 부리는 일에 자기 자산을 탕진하는 경향이 있

69:5.3 (776.1) The basic urges which led to the accumulation of capital were:

69:5.4 (776.2) 1. *Hunger* — associated with foresight. Food saving and preservation meant power and comfort for those who possessed sufficient foresight thus to provide for future needs. Food storage was adequate insurance against famine and disaster. And the entire body of primitive mores was really designed to help man subordinate the present to the future.

69:5.5 (776.3) 2. *Love of family* — desire to provide for their wants. Capital represents the saving of property in spite of the pressure of the wants of today in order to insure against the demands of the future. A part of this future need may have to do with one's posterity.

69:5.6 (776.4) 3. *Vanity* — longing to display one's property accumulations. Extra clothing was one of the first badges of distinction. Collection vanity early appealed to the pride of man.

69:5.7 (776.5) 4. *Position* — eagerness to buy social and political prestige. There early sprang up a commercialized nobility, admission to which depended on the performance of some special service to royalty or was granted frankly for the payment of money.

69:5.8 (776.6) 5. *Power* — the craving to be master. Treasure lending was carried on as a means of enslavement, one hundred per cent a year being the loan rate of these ancient times. The moneylenders made themselves kings by creating a standing army of debtors. Bond servants were among the earliest form of property to be accumulated, and in olden days debt slavery extended even to the control of the body after death.

69:5.9 (776.7) 6. *Fear of the ghosts of the dead* — priest fees for protection. Men early began to give death presents to the priests with a view to having their property used to facilitate their progress through the next life. The priesthoods thus became very rich; they were chief among ancient capitalists.

69:5.10 (776.8) 7. *Sex urge* — the desire to buy one or more wives. Man's first form of trading was woman exchange; it long preceded horse trading. But never did the barter in sex slaves advance society; such traffic was and is a racial disgrace, for at one and the same time i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family life and polluted the biologic fitness of superior peoples.

69:5.11 (776.9) 8. *Numerous forms of self-gratification*. Some sought wealth because it conferred power; others toiled for property because it meant ease. Early man (and some later-day ones) tended to squander his resources on luxury. Intoxicants and drugs intrigued the

었다. 취하게 하는 것과 마약은 원시종족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저축에 대한 새로운 동기들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필요성들이 양식에 대한 기원적인 갈망에 덧붙여졌다. 가난을 무척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오직 부자들만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재산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허영심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이름으로부터 불명예를 씻으려고 하였다.

재산의 축적은 일찍부터 사회적인 영예의 상징이 되었다. 특정 부족의 개별존재들은 어느 축제일에 자기 재물을 태우거나 부족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그것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현대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절제하게 나누어줌으로써 낭비하고 있으며, 반면에 부자들은 자선 단체와 교육 기관들에게 크게 자질로서 부여한다. 사람의 기법은 변하지만, 이러한 기질은 거의 변함없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대의 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재물을 많이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 다수의 노예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비록 자본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소속된 사회적이고 산업적인 조직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정하지 못한 자본가들에 의한 자본의 악용도, 그것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파기시키지는 못한다. 자본과 발명을 통하여, 현재의 세대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경솔하고 이기적인 보호관리자들에 의해서 자본이 여러 번 오용된 것에 대한 변명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기록하는 것이다.

제 6 장. 문명과 불의 관계

네 개의 분야—산업적, 규제적, 종교적, 군사적—로 구성된 원시적 사회는 불, 동물들, 노예들, 그리고 토지라는 수단들을 통하여 발생되었다.

불을 피우는 행위는, 단 한 번의 도약에 의해서, 사람을 언제까지나 동물로부터 구분시켰으며; 그것은 근본적인 발명 또는 발견이었다. 불은 모든 동물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밤에도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였다. 불은 황혼 무렵의 사회적 교제를 복돋았다; 추위와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에 대항하는 안전책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열을 위한 수단보다 빛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진보가 늦은 부족들 대부분은 밤새도록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primitive races.

69:5.12 (776.10) As civilization developed, men acquired new incentives for saving; new wants were rapidly added to the original food hunger. Poverty became so abhorred that only the rich were supposed to go direct to heaven when they died. Property became so highly valued that to give a pretentious feast would wipe a dishonor from one's name.

69:5.13 (777.1) Accumulations of wealth early became the badge of social distinction. Individuals in certain tribes would accumulate property for years just to create an impression by burning it up on some holiday or by freely distributing it to fellow tribesmen. This made them great men. Even modern peoples revel in the lavish distribution of Christmas gifts, while rich men endow great institutions of philanthropy and learning. Man's technique varies, but his disposition remains quite unchanged.

69:5.14 (777.2) But it is only fair to record that many an ancient rich man distributed much of his fortune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killed by those who coveted his treasures. Wealthy men commonly sacrificed scores of slaves to show disdain for wealth.

69:5.15 (777.3) Though capital has tended to liberate man, it has greatly complicated his social and industrial organization. The abuse of capital by unfair capitalists does not destroy the fact that it is the basi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Through capital and invention the present generation enjoys a higher degree of freedom than any that ever preceded it on earth. This is placed on record as a fact and not in justification of the many misuses of capital by thoughtless and selfish custodians.

6. FIRE IN RELATION TO CIVILIZATION

69:6.1 (777.4) Primitive society with its four divisions — industrial, regulative, religious, and military — rose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fire, animals, slaves, and property.

69:6.2 (777.5) Fire building, by a single bound, forever separated man from animal; it is the basic human invention, or discovery. Fire enabled man to stay on the ground at night as all animals are afraid of it. Fire encouraged eventide social intercourse; it not only protected against cold and wild beasts but was also employed as security against ghosts. It was at first used more for light than heat; many backward tribes refuse to sleep unless a flame burns all night.

불은 문명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혼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불이 살아있는 숯을 그로 하여금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아무 손해 없이 남에게 유익을 줌으로서 이타적 존재가 되는 최초의 수단이 되었다. 한 집안의 불은 어머니 또는 가장 나이가 많은 딸에 의해서 보존되었는데, 방심하지 않는 태도와 믿음직스러운 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선생 역할을 하였다. 초기 시대의 가정은 건물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그 가족들은 가족 공동 화로인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민 아들은 그 가족 공동 화로에서 불씨를 옮겨갔다.

불을 처음 발견한 안돈은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였지만, 그의 자손들 대부분은 그 불꽃을 경배 대상 또는 하나의 영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을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청결하게 만드는 불의 효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원시인은 불을 두려워하였고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 냄새가 적게 나도록 하려고 항상 애를 썼다. 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 속에 침을 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어떤 사람 사이를 결코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 인류는 심지어는 불을 붙이는데 사용된 황화철과 부싯돌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불을 끄는 것은 하나의 죄였으며; 만일 집이 불에 타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신전(神殿)과 성지(聖地)에 있는 불들은 신성시되었고,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어떤 재난이 있을 후에 새로 불을 붙이는 것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을 절대로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인들이 사제로 선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 있는 불의 보호관리자였기 때문이다.

불이 어떻게 하여 하느님들로부터 내려왔는지에 관해 기록된 초기의 신화들은 번갯불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초자연적 기원에 대한 이 관념들은 불을 경배하도록 직접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불에 대한 경배는 “불을 통과하는” 풍습을 낳게 하였고, 그 실천 관행은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속되었다. 불에 대한 신화는 초기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속박의 도구였으며 파시 교도들의 상징주의 속에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불로 인하여 조리법이 생겼고,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하는 일에 소모되는 것을 줄여주었고, 그리하여 초기 사람은 사회적인 문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으며, 반면에 목축업은 양식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불로 인하여 금속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증기력(蒸氣力)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지금-현재에는 전기를 이용하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9:6.3 (777.6) Fire was a great civilizer, providing man with his first means of being altruistic without loss by enabling him to give live coals to a neighbor without depriving himself. The household fire, which was attended by the mother or eldest daughter, was the first educator, requiring watchfulness and dependability. The early home was not a building but the family gathered about the fire, the family hearth. When a son founded a new home, he carried a firebrand from the family hearth.

69:6.4 (777.7) Though Andon, the discoverer of fire, avoided treating it as an object of worship, many of his descendants regarded the flame as a fetish or as a spirit. They failed to reap the sanitary benefits of fire because they would not burn refuse. Primitive man feared fire and always sought to keep it in good humor, hence the sprinkling of incense. Under no circumstances would the ancients spit in a fire, nor would they ever pass between anyone and a burning fire. Even the iron pyrites and flints used in striking fire were held sacred by early mankind.

69:6.5 (777.8) It was a sin to extinguish a flame; if a hut caught fire, it was allowed to burn. The fires of the temples and shrines were sacred and were never permitted to go out except that it was the custom to kindle new flames annually or after some calamity. Women were selected as priests because they were custodians of the home fires.

69:6.6 (778.1) The early myths about how fire came down from the gods grew out of the observations of fire caused by lightning. These ideas of supernatural origin led directly to fire worship, and fire worship led to the custom of “passing through fire,” a practice carried on up to the times of Moses. And there still persists the idea of passing through fire after death. The fire myth was a great bond in early times and still persists in the symbolism of the Parsees.

69:6.7 (778.2) Fire led to cooking, and “raw eaters” became a term of derision. And cooking lessened the expenditure of vital energy necessary for the digestion of food and so left early man some strength for social culture, while animal husbandry, by reducing the effort necessary to secure food, provided time for social activities.

69:6.8 (778.3)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fire opened the doors to metalwork and led to the subsequent discovery of steam power and the present-day uses of electricity.

제 7 장. 동물의 활용

처음에는, 동물세계 전체가 사람의 적(敵)이었고, 인간 존재들은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었다. 초기에는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것으로 그쳤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배웠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일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그 야만인들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들소를 사냥했던 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냥하였다. 가축 떼를 포위함으로써 그 동물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양식이 부족할 때 그것들을 잡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가축우리들이 건축되었고, 가축 떼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동물들은 코끼리의 경우처럼 길들이기가 용이하였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속박된 상태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으려고 하였다. 특정한 종류의 동물들이 사람의 현존에게 복종하고, 포로로 된 상태에서도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선택적인 번식,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크게 진보를 이룩한 기술에 의해서 장려되었다.

개는 길들여진 최초의 동물이었으며, 그것을 유순하게 만드는 어려운 체험은 한 마리 개가 하루 종일 사냥꾼 주변을 맴돌다가 그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집까지 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개들은 양식, 사냥, 운반 수단, 그리고 동행자신분으로 이용되었다. 처음에는 개들이 소리를 길게 뽕으며 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는 울리는 소리로 짖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냄새에 대한 개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들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으며, 개를 승배의 대상으로 삼는 예배종파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감시하는 개를 활용함으로써, 처음으로 씨족 전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는 영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적들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일에 감시견(監視犬)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개가 짖을 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가까이 온 것이고, 길게 소리 내어 울 때에는 영들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개가 밤에 길게 소리 내어 우는 것은 죽음에 대한 전조(前兆)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남자가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여자에게 제법 친절하였지만, 동물들을 길들인 후에는, 칼리가스티아에 의한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부족들이 자기의 여자들을 고약스럽게 취급하였다. 그들은 마치 자기 동물들을 취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여자들 전체를 취급하였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잔인한 대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들 중의 하나를 장식하고 있다.

제 8 장. 문명의 한 요소인 노예 제도

7. THE UTILIZATION OF ANIMALS

69:7.1 (778.4) To start with, the entire animal world was man's enemy; human beings had to learn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beasts. First, man ate the animals but later learned to domesticate and make them serve him.

69:7.2 (778.5)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came about accidentally. The savage would hunt herds much as the American Indians hunted the bison. By surrounding the herd they could keep control of the animals, thus being able to kill them as they were required for food. Later, corrals were constructed, and entire herds would be captured.

69:7.3 (778.6) It was easy to tame some animals, but like the elephant, many of them would not reproduce in captivity. Still further on it was discovered that certain species of animals would submit to man's presence, and that they would reproduce in captivit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was thus promoted by selective breeding, an art which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the days of Dalamatia.

69:7.4 (778.7) The dog was the first animal to be domesticated, and the difficult experience of taming it began when a certain dog, after following a hunter around all day, actually went home with him. For ages dogs were used for food, hunting, transportation, and companionship. At first dogs only howled, but later on they learned to bark. The dog's keen sense of smell led to the notion it could see spirits, and thus arose the dog-fetish cults. The employment of watchdogs made it first possible for the whole clan to sleep at night. It then became the custom to employ watchdogs to protect the home against spirits as well as material enemies. When the dog barked, man or beast approached, but when the dog howled, spirits were near. Even now many still believe that a dog's howling at night betokens death.

69:7.5 (778.8) When man was a hunter, he was fairly kind to woman, but after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coupled with the Caligastia confusion, many tribes shamefully treated their women. They treated them altogether too much as they treated their animals. Man's brutal treatment of woman constitutes one of the darkest chapters of human history.

8. SLAVERY AS A FACTOR IN CIVILIZATION

원시인은 자기 동료들을 노예로 삼는 일에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여성이 최초의 노예, 가정의 노예였다. 목축을 하는 남성은 여성을 노예화하여 자기보다 열등한 성(性)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성적 노예는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의존도가 줄어든 것에서 기인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노예를 삼는 일은 정복자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 포로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보다 먼 옛날에는 포로들을 잡아 먹거나, 화형 시키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초자연적 존재에게 희생제물로 삼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다. 노예 제도는 대량학살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것이었다.

노예를 삼는 것은 전쟁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한 단계 전진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아이 종족의 복병들이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학살하면서, 정복자로서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직 그 왕만을 살려두었던 것은, 문명인으로 여겨지는 민족들까지도 야만적인 대량학살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그를 습격한 바산의 왕 역시 잔인하게 효력을 보였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철저히 섬멸”하였고,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졌습시다. 그들은 “모든 남자들이 멸절되는” 공포 위에서 모든 도시들에게 공물을 강요했다. 그러나 당대의 부족들 대부분은 부족적인 이기주의가 훨씬 덜하였고, 우월한 포로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실천 관행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었다.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과 같은 사냥꾼들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 그들은 포로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거나 죽였다. 목축을 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노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목자(牧者)들은 붙잡힌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실천 관행으로 만들었다. 모세의 법전은 이러한 여자 포로들을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돌려보낼 수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되지 못한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그것은 문명화에 있어서 적어도 한 걸음 진보적인 것이었다. 비록 히브리인들의 사회적 규범이 미숙하기는 하였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보다는 훨씬 앞선 것이었다.

목자들은 최초의 자본가였는데, 그들이 소유한 가축 떼는 자본금에 해당되었고, 그들은 이자로—자연적인 증가—생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을 노예나 여자들에 맡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남자 포로들을 거느렸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일구도록 시켰다. 이것이 농노제—토지에 부속된 사람—의 초기 기원이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땅을 일구는 방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대한 노예 인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노예제도는 인간 문명의 연결 고리들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리였다. 그것은 혼돈과

69:8.1 (778.9) Primitive man never hesitated to enslave his fellows. Woman was the first slave, a family slave. Pastoral man enslaved woman as his inferior sex partner. This sort of sex slavery grew directly out of man's decreased dependence upon woman.

69:8.2 (789.1) Not long ago enslavement was the lot of those military captives who refused to accept the conqueror's religion. In earlier times captives were either eaten, tortured to death, set to fighting each other, sacrificed to spirits, or enslaved. Slavery was a great advancement over massacre and cannibalism.

69:8.3 (789.2) Enslavement was a forward step in the merciful treatment of war captives. The ambush of Ai, with the wholesale slaughter of men, women, and children, only the king being saved to gratify the conqueror's vanity, is a faithful picture of the barbaric slaughter practiced by even supposedly civilized peoples. The raid upon Og, the king of Bashan, was equally brutal and effective. The Hebrews “utterly destroyed” their enemies, taking all their property as spoils. They put all cities under tribute on pain of the “destruction of all males.” But many of the contemporary tribes, those having less tribal egotism, had long since begun to practice the adoption of superior captives.

69:8.4 (789.3) The hunter, like the American red man, did not enslave. He either adopted or killed his captives. Slavery was not prevalent among the pastoral peoples, for they needed few laborers. In war the herders made a practice of killing all men captives and taking as slaves only the women and children. The Mosaic code contained specific directions for making wives of these women captives. If not satisfactory, they could be sent away, but the Hebrews were not allowed to sell such rejected consorts as slaves — that was at least one advance in civilization. Though the social standards of the Hebrews were crude, they were far above those of the surrounding tribes.

69:8.5 (789.4) The herders were the first capitalists; their herds represented capital, and they lived on the interest — the natural increase. And they were disinclined to trust this wealth to the keeping of either slaves or women. But later on they took male prisoners and forced them to cultivate the soil. This is the early origin of serfdom — man attached to the land. The Africans could easily be taught to till the soil; hence they became the great slave race.

69:8.6 (789.5) Slavery was an indispensable link in the chain of human civilization. It was the bridge over which society passed from chaos and

게으름의 상태에서 질서와 문명화된 활동으로 옮겨가는 다리였으며; 진보가 느리고 나태한 민족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보다 우월한 자들의 사회적인 진출을 위하여 재산과 여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노예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시 사회에 대한 규제적 기능구조를 창안하도록 강요하였다; 정부 형태가 시작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노예제도는 강력한 규정을 필요로 하였으며, 유럽의 중세 시대 동안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봉건 군주들이 노예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보가 느린 고대의 부족들은,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처럼, 노예를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노예제도는 압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산업을 배운 것은 고난스러운 그 학교에서였다. 결국에는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강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만 하였던 높은 사회가 이룩한 축복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 노예제도는 문화적인 조직과 사회적인 진보를 이룩하지만, 가장 심각한 모든 파괴적인 사회적 병폐들이 되어 곧 사회를 내부적으로 교활하게 공격한다.

현대의 기계 발명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노예제도는, 일부다처제처럼, 이익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초래 한다; 그들이 점차적으로 해방될 때 문제가 적게 발생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노예제도는 하나의 새롭고도 개선된 형태의 변형된 산업적 노예제도가 형성되게 하였다.

보편적인 자유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반면, 게으름이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자아-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만 한다.

현대 사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졌고; 길들인 동물도 사라지고 있다. 문명은 힘을 얻기 위해 불—무기체의 세계—을 향하여 되돌아 내 뻗고 있다. 사람은 불, 동물, 그리고 노예제도를 거쳐 야만적 상태에서부터 올라 왔는데, 오늘날 사람은 노예의 도움과 동물들의 보조를 뒤로 버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의 원소 창고(倉庫)로부터 나오는 부(富)와 힘의 새로운 비밀과 근원을 짜내려고 추구하며 내뻗고 있다.

제 9 장. 사유 재산

원시 사회가 실질적으로 공동 사회였던 반면, 원시인은 공산주의에 대한 현대적 학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초기 시대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단순하고 실천적인 자동 조절을 이루었다. 공산주의가 빈곤한 상태와 결핍을 방지하였고; 고대의

indolence to order and civilized activities; it compelled backward and lazy peoples to work and thus provide wealth and leisure for the social advancement of their superiors.

69:8.7 (789.6) The institution of slavery compelled man to invent the regulative mechanism of primitive society; it gave origin to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Slavery demands strong regulation and during the European Middle Ages virtually disappeared because the feudal lords could not control the slaves. The backward tribes of ancient times, like the native Australians of today, never had slaves.

69:8.8 (789.7) True, slavery was oppressive, but it was in the schools of oppression that man learned industry. Eventually the slaves shared the blessings of a higher society which they had so unwillingly helped create. Slavery creates an organization of culture and social achievement but soon insidiously attacks society internally as the gravest of all destructive social maladies.

69:8.9 (789.8) Modern mechanical invention rendered the slave obsolete. Slavery, like polygamy, is passing because it does not pay. But it has always proved disastrous suddenly to liberate great numbers of slaves; less trouble ensues when they are gradually emancipated.

69:8.10 (780.1) Today, men are not social slaves, but thousands allow ambition to enslave them to debt. Involuntary slavery has given way to a new and improved form of modified industrial servitude.

69:8.11 (780.2) While the ideal of society is universal freedom, idleness should never be tolerated. All able-bodied persons should be compelled to do at least a self-sustaining amount of work.

69:8.12 (780.3) Modern society is in reverse. Slavery has nearly disappeared; domesticated animals are passing. Civilization is reaching back to fire — the inorganic world — for power. Man came up from savagery by way of fire, animals, and slavery; today he reaches back, discarding the help of slaves and the assistance of animals, while he seeks to wrest new secrets and sources of wealth and power from the elemental storehouse of nature.

9. PRIVATE PROPERTY

69:9.1 (780.4) While primitive society was virtually communal, primitive man did not adhere to the modern doctrines of communism. The communism of these early times was not a mere theory or social doctrine; it was a simple and practical automatic adjustment. Communism

부족들은 구걸과 타락은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원시적인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차원을 유별나게 낮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상태를 고양시키지도 않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장려하였고, 산업을 억제하였으며 야망을 소멸시켰다. 공산주의는 원시 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발판이기는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인간의 강력한 4가지 성향에 거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사회 계층으로 진화되도록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1. 가족. 사람은 재산 축적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원시적 공산 사회에 있어서 한 사람의 자산은 즉시 소비되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집단들에게 분배되었다. 증여되는 재산이 없었다.—증여세가 100%였다. 축적된 자산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후대의 사회관례는 뚜렷한 사회적 진보였다. 그리고 자본이 잘못 사용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야비한 악용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종교적 성향들. 원시인은 차후의 실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삶을 위한 토대로써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할 때 그의 개인적인 소장품들을 함께 묻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행해졌던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자들만이 어떤 즉각적인 기쁨과 존엄을 갖춘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이다.

3. 해방과 여가 시간에 대한 갈망. 사회적 진화의 초기시대에 있어서, 집단 속에서의 개별적인 소득 분배는 실질적으로 노예제도의 한 형태였으며; 노동자들은 게으름뱅이들에게 노예처럼 혹사되었다. 공산주의가 자멸하게 된 허약성은: 장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현시대에서도, 장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절약하는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돌보도록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먹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4. 안전과 권세에 대한 충동. 공산주의는, 자기 부족들의 무기력한 게으름뱅이들에게 노예상태로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있어서, 다양한 구실들에 의존하는 호소하는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개별존재들의, 기만적인 실천 관행에 의해서 마침내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축적되었고; 원시적인 불안정 때문에 자본의 공개적인 축적이 방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대에 이르러서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왕은 부자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략, 부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공공의 복지를 위

prevented pauperism and want; begging and prostitution were almost unknown among these ancient tribes.

69:9.2 (780.5) Primitive communism did not especially level men down, nor did it exalt mediocrity, but it did put a premium on inactivity and idleness, and it did stifle industry and destroy ambition. Communism was indispensable scaffolding in the growth of primitive society, but it gave way to the evolution of a higher social order because it ran counter to four strong human proclivities:

69:9.3 (780.6) 1. *The family.* Man not only craves to accumulate property; he desires to bequeath his capital goods to his progeny. But in early communal society a man's capital was either immediately consumed or distributed among the group at his death. There was no inheritance of property — the inheritance tax was one hundred per cent. The later capital-accumulation and property-inheritance mores were a distinct social advance. And this is true notwithstanding the subsequent gross abuses attendant upon the misuse of capital.

69:9.4 (780.7) 2. *Religious tendencies.* Primitive man also wanted to save up property as a nucleus for starting life in the next existence. This motive explains why it was so long the custom to bury a man's personal belongings with him. The ancients believed that only the rich survived death with any immediate pleasure and dignity. The teachers of revealed religion, more especially the Christian teachers, were the first to proclaim that the poor could have salvation on equal terms with the rich.

69:9.5 (780.8) 3. *The desire for liberty and leisure.* In the earlier days of social evolution the apportionment of individual earnings among the group was virtually a form of slavery; the worker was made slave to the idler. This was the suicidal weakness of communism: The improvident habitually lived off the thrifty. Even in modern times the improvident depend on the state (thrifty taxpayers) to take care of them. Those who have no capital still expect those who have to feed them.

69:9.6 (780.9) 4. *The urge for security and power.* Communism was finally destroyed by the deceptive practices of progressive and successful individuals who resorted to diverse subterfuges in an effort to escape enslavement to the shiftless idlers of their tribes. But at first all hoarding was secret; primitive insecurity prevented the outward accumulation of capital. And even at a later time it was most dangerous to amass too much wealth; the king would be sure to trump up some charge for confiscating a rich man's property, and when a wealthy man died, the funeral was held up until the

해서 또는 왕에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바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비책(秘策)을 꾸미고자 하였다.

아주 먼 옛날에는 여인들이 그 공동체의 재산이었으며,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하였다. 초기 시대의 우두머리들이 모든 땅을 소유하였고 모든 여인들의 소유자였으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였다. 공산주의가 물리나면서, 여인들은 개별적으로 소유되었고, 점점 더 아버지가 가정의 통제를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정이 시작되었고, 널리 행해지던 일부다처제 관습들은 점차적으로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 있어서 여성-노예제도 요소가 잔존한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의 설립, 자녀 양육, 공동 문화, 그리고 자아-향상이라는 더 없이 훌륭한 모험적 체계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적-연합을 이룬다는 노예-해방의 이상이다.)

처음에는, 연장들과 무기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소유였다. 개인적인 재산은 직접 손을 댄 모든 물건들로 먼저 이루어졌다. 만일 낯선 사람이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 그 그릇은 그 때부터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뿌린 장소는 어디든지 상처를 낸 그 사람 또는 집단의 재산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은 높이 평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소유주의 개인성의 일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미신을 토대로 하여 재산에 대한 정직성이 안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소속된 것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남자들이 다른 부족들의 재물들을 빼앗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흠치는 일이 없었다. 재산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을 불에 태웠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함께 묻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부족에게 물려주었다.

장신구 종류의 개인 소지품들은 마력을 몸에 지닌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허영심과 함께 초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좋아하는 마법의 물건들을 가져가려는 어떤 공격도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소유물은 생활필수품들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다.

잠을 자는 공간은 사람의 초기 재산들 중의 하나였다. 나중에는 그 집단을 위해 모든 부동산을 맡고 있는 부족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집터가 결정되었다. 이윽고 불을 피우는 자리가 소유지로 주어졌고, 좀 더 나중에는 우물이 인근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구성하게 되었다.

물구덩이들과 우물들은 최초의 사유 재산에 속하였다. 미신적인 숭배 실천 관행 전체는 물구덩이들, 우물들, 나무들, 농작물들, 그리고 꿀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었다. 미신적인 숭배물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후에는, 사적인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하여 법규가 진화되었다. 그러나 수렵법, 사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법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은 땅을 사적으로 소유

family donated a large sum to public welfare or to the king, an inheritance tax.

69:9.7 (781.1) In earliest times women were the property of the community, and the mother dominated the family. The early chiefs owned all the land and were proprietors of all the women; marriage required the consent of the tribal ruler. With the passing of communism, women were held individually, and the father gradually assumed domestic control. Thus the home had its beginning, and the prevailing polygamous customs were gradually displaced by monogamy. (Polygamy is the survival of the female-slavery element in marriage. Monogamy is the slave-free ideal of the matchless association of one man and one woman in the exquisite enterprise of home building, offspring rearing, mutual culture, and self-improvement.)

69:9.8 (781.2) At first, all property, including tools and weapons, was the common possession of the tribe. Private property first consisted of all things personally touched. If a stranger drank from a cup, the cup was henceforth his. Next, any place where blood was shed became the property of the injured person or group.

69:9.9 (781.3) Private property was thus originally respected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charged with some part of the owner's personality. Property honesty rested safely on this type of superstition; no police were needed to guard personal belongings. There was no stealing within the group, though men did not hesitate to appropriate the goods of other tribes. Property relations did not end with death; early, personal effects were burned, then buried with the dead, and later, inherited by the surviving family or by the tribe.

69:9.10 (781.4) The ornamental type of personal effects originated in the wearing of charms. Vanity plus ghost fear led early man to resist all attempts to relieve him of his favorite charms, such property being valued above necessities.

69:9.11 (781.5) Sleeping space was one of man's earliest properties. Later, homesites were assigned by the tribal chiefs, who held all real estate in trust for the group. Presently a fire site conferred ownership; and still later, a well constituted title to the adjacent land.

69:9.12 (781.6) Water holes and wells were among the first private possessions. The whole fetish practice was utilized to guard water holes, wells, trees, crops, and honey. Following the loss of faith in the fetish, laws were evolved to protect private belongings. But game laws, the right to hunt, long preceded land laws. The American red man never understood private ownership of land; he could not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백색 인종들의 관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사유 재산은 일찍부터 가족 표식에 의해 표시되었고, 이것은 가족 문장의 표시가 되었다. 부동산 역시 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제들은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마법을 가진 금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소유주들은 그 때부터 “사제들의 증서”를 가진 것으로 부르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가족 경계표들을 무척 존중하였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돌로 만든 이 표지들 위에는 사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새겨질 때에는 나무들조차도 사유 재산이 되었다.

초기 시대에는 오직 농작물만이 사유 재산이었지만, 연속되는 농작물이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업은 땅을 사적인 소유가 되도록 하는 기원이 되었다. 개별존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땅의 소유권이 주어졌고, 죽은 후에는 부족의 소유로 되돌려졌다. 땅의 소유권이 개별존재에게 수여된 가장 최초의 경우는 무덤—가족 공동묘지—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땅은 담을 세운 사람에게 소속되었다. 그러나 성읍들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초지로 일정한 땅을 예비해 두었다; 이러한 “공동 토지”는 초기의 공동 소유 개념이 잔존된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에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지를 개별존재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다. 땅 임자들은, 자기들의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만들면서, 땅을 빌려준 값을 받을 수 있었고, 땅은 소득의 근원—자본—이 되었다. 마침내 땅은 판매, 이전, 저당, 담보 권리 상실의 방법과 함께 정당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사적인 소유권은 해방을 증대시켰고 안정성을 증진시켰지만; 땅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오직 공동 사회의 통제와 지도가 실패한 후에야 사회적인 인정이 주어졌으며, 곧 그 뒤를 이어서 노예들과 농노들 그리고 땅이 없는 계급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개선된 기계들이, 일에 노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점차 벗어나게 하였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 법, 계층, 평등권, 사회적 해방, 관습, 평화 그리고 행복의 전체는, 현대인들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되어 왔다.

현재의 사회 계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거룩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음—, 인류는 서서히 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잘 대처할 것이다. 너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알았던 어떤 체계보다도 대단히 월등하다. 너희가 사회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너희 조상들이 폐기시켰던 상투적인 방식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라! 진화가 계속되도록 노력해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comprehend the white man's view.

69:9.13 (781.7) Private property was early marked by family insignia, and this is the early origin of family crests. Real estate could also be put under the watchcare of spirits. The priests would “consecrate” a piece of land, and it would then rest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agic taboos erected thereon. Owners thereof were said to have a “priest's title.” The Hebrews had great respect for these family landmarks: “Cursed be he who removes his neighbor's landmark.” These stone markers bore the priest's initials. Even trees, when initialed, became private property.

69:9.14 (782.1) In early days only the crops were private, but successive crops conferred title; agriculture was thus the genesis of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Individuals were first given only a life tenureship; at death land reverted to the tribe. The very first land titles granted by tribes to individuals were graves — family burying grounds. In later times land belonged to those who fenced it. But the cities always reserved certain lands for public pasturage and for use in case of siege; these “commons” represent the survival of the earlier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69:9.15 (782.2) Eventually the state assigned property to the individual, reserving the right of taxation. Having made secure their titles, landlords could collect rents, and land became a source of income — capital. Finally land became truly negotiable, with sales, transfers, mortgages, and foreclosures.

69:9.16 (782.3) Private ownership brought increased liberty and enhanced stability; but private ownership of land was given social sanction only after communal control and direction had failed, and it was soon followed by a succession of slaves, serfs, and landless classes. But improved machinery is gradually setting men free from slavish toil.

69:9.17 (782.4) The right to property is not absolute; it is purely social. But all government, law, order, civil rights, social liberties, conventions, peace, and happiness, as they are enjoyed by modern peoples, have grown up around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69:9.18 (782.5) The present social order is not necessarily right — not divine or sacred — but mankind will do well to move slowly in making changes. That which you have is vastly better than any system known to your ancestors. Make certain that when you change the social order you change for the better. Do not be persuaded to experiment with the discarded formulas of your forefathers. Go forward, not backward! Let evolution proceed! Do not take a backward step.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69:9.19 (782.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0 편 인간 정부의 진화

⇨ 069

유랜시아 책

071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0 편 인간 정부의 진화

색션

소개

- 제 1 장. 전쟁의 기원
- 제 2 장. 전쟁의 사회적 가치
- 제 3 장. 초기의 인간 관계적-연합
- 제 4 장. 씨족과 부족
- 제 5 장. 정부의 시작
- 제 6 장. 군주제 정부
- 제 7 장. 원시적 단체들과 비밀 공동체들
- 제 8 장. 사회 등급
- 제 9 장. 인간의 권리
- 제 10 장. 공의(公義)의 진화
- 제 11 장. 법과 법정
- 제 12 장. 시민 권한의 배분

PAPER 70

THE EVOLUTION OF HUMAN GOVERNMENT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Genesis of War
- 2. The Social Value of War
- 3. Early Human Associations
- 4. Clans and Tribes
- 5.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 6. Monarchial Government
- 7. Primitive Clubs and Secret Societies
- 8. Social Classes
- 9. Human Rights
- 10. Evolution of Justice
- 11. Laws and Courts
- 12. Allocation of Civil Authority

소개

사람은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자마자, 인간 상호간의 계약을 규제하는 과제에 부딪혔다. 산업의 발달은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적 조절을 요구하였고, 재산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반목은 자연적인 것이다; 평화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규제적인 체계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사회적인 규정은 사회적 조직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고; 관계적-연합은 다소간의 통제하는 권한을 내포한다. 정부는 부족들, 씨족들, 가족들 그리고 각 개별존재들에서의 적개심에 대한 조화-협동을 강요한다.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발전된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되어 간다. 그것은 생존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통적이 된다. 무정부 상태는 고통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정부, 상대적인

INTRODUCTION

70:0.1 (783.1) NO SOONER had man partially solved the problem of making a living than he wa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regulating human contact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demanded law, order, and social adjustment; private property necessitated government.

70:0.2 (783.2) On an evolutionary world, antagonisms are natural; peace is secured only by some sort of social regulative system. Social regulation is inseparable from social organization; association implies some controlling authority. Government compels the co-ordination of the antagonisms of the tribes, clans, families, and individuals.

70:0.3 (783.3) Government is an unconscious development; it evolves by trial and error. It does have survival value; therefore it becomes traditional. Anarchy augmented misery; therefore

법과 질서가 서서히 창발되거나 창발하고 있다. 실존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강제적 요구는 인간들로 하여금 정말로 문명에 이르는 진보적 길을 걷도록 몰아붙인다.

government, comparative law and order, slowly emerged or is emerging. The coercive demands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literally drove the human race along the progressive road to civilization.

제 1 장. 전쟁의 기원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본능적 상태이자 유산이다; 평화는 문명의 발전 정도를 재는 사회적 척도이다. 진보하는 종족들이 부분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전에, 사람은 대단히 개별적이고, 몹시 의심스러워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이었다. 폭력은 자연본능의 법칙이고, 적의는 자연본능의 자녀가 지니는 자동적인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단지 바로 이들 행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명을 구성하는 조직이 사회적 향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압박감을 받게 되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 상호-연관에서의 울화를 폭력적으로 조절하려는 이들 초기 방법으로 즉시 되돌아가는 파괴적인 역행이 항상 존재한다.

전쟁은 오해와 자극들에 대한 동물적 반작용이다; 평화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문명화된 해결책에 수반되는 것이다. 산길 종족들은, 후대의 타락한 아담-사람들과 노트-사람들과 함께, 모두 호전적이었다. 안돈-사람들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들은 그 규범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다; 그들은 관습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난폭한 반목은 상당히 없는 편이다.

안돈은 자기 자손들에게, 각자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작은 막대기로 그것을 때리게 함으로써 분쟁을 진정시키도록 가르쳤으며; 막대기가 먼저 부러지는 쪽이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 후대의 안돈-사람들은, 공개적인 구경거리를 열어서 분쟁자들이 서로를 희롱하고 비웃도록 시켰고, 한편으로 청중들이 박수갈채로 승리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진정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평화로운 기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전쟁 비슷한 실전을 인가할 만큼 충분히 진화될 때까지는 전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전쟁한다는 바로 그 개념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집단들이 생겨나자, 개별적인 자극들은 집단적 감정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것은 부족 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부족 내부의 평온을 증진시켜 주었다. 이처럼 평화는 처음에는 집단 또는 부족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항상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초기 사람은 외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일종의 덕목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초기 우두머리들이 오해들을 제거시키고자

1. THE GENESIS OF WAR

70:1.1 (783.4) War is the natural state and heritage of evolving man; peace is the social yardstick measuring civilization's advancement. Before the partial socialization of the advancing races man was exceedingly individualistic, extremely suspicious, and unbelievably quarrelsome. Violence is the law of nature, hostility the automatic reaction of the children of nature, while war is but these same activities carried on collectively. And wherever and whenever the fabric of civilization becomes stressed by the complications of society's advancement, there is always an immediate and ruinous reversion to these early methods of violent adjustment of the irritations of human interassociations.

70:1.2 (783.5) War is an animalistic reaction to misunderstandings and irritations; peace attends upon the civilized solution of all such problems and difficulties. The Sangik races, together with the later deteriorated Adamites and Nodites, were all belligerent. The Andonites were early taught the golden rule, and, even today, their Eskimo descendants live very much by that code; custom is strong among them, and they are fairly free from violent antagonisms.

70:1.3 (783.6) Andon taught his children to settle disputes by each beating a tree with a stick, meanwhile cursing the tree; the one whose stick broke first was the victor. The later Andonites used to settle disputes by holding a public show at which the disputants made fun of and ridiculed each other, while the audience decided the winner by its applause.

70:1.4 (783.7) But there could be no such phenomenon as war until society had evolved sufficiently far to actually experience periods of peace and to sanction warlike practices. The very concept of war implies some degree of organization.

70:1.5 (784.1) With the emergence of social groupings, individual irritations began to be submerged in the group feelings, and this promoted intratribal tranquillity but at the expense of intertribal peace. Peace was thus first enjoyed by the in-group, or tribe, who always disliked and hated the out-group, foreigners. Early man regarded it a virtue to shed alien blood.

70:1.6 (784.2) But even this did not work at first. When the early chiefs would try to iron out

하였을 때, 그들은 부족끼리 투석전(投石戰)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필요하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였다. 그 씨족은 두 개의 집단들로 나뉘어 하루 종일 싸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실제로 그러한 싸움을 즐겼던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한 인간이고, 모든 동물들은 다 호전적이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초기 원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굶주림, 음식을 강탈하도록 만들. 땅의 부족은 항상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투쟁들의 와중에서 초기에 평화롭던 부족들은 실천적으로 멸절되었다.

2. 여성의 부족—가사 도움에서의 모자람을 해소시키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는 일은 항상 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3. 허영심—부족의 용맹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우수한 집단들은 열등한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4. 노예들—노동자 계급 확보의 필요성.

5. 복수는, 한 부족이 자기 부족의 친구를 이웃 부족이 죽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머리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 애곡(哀哭)하였다. 복수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6. 오락—이러한 초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오락처럼 여겼다. 만약 전쟁을 일으킬만한 그럴듯하고 충분한 구실이 생기지 않으면,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인접된 부족들은 가짜 전쟁을 즐기기 위하여 일종의 축제로써 늘 하던 장소로 나가서 다소 친근감을 갖는 전투를 벌이곤 하였다.

7. 종교—개종시키고자 하는 욕구. 원시적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정하였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야 종교가 전쟁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성직자들은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군사력과 결연관계를 이루었다. 오랜 시대 동안에 가장 큰 평화 운동들 중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고대의 이 부족들은 자기 하느님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의 우두머리 또는 주술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들은 “전쟁터의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이 미디안-사람을 침략한 것에 대한 기록은 고대의 부족 간의 전쟁이 지독하게 무자비하였던 것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었다;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나중에는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들과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였던 갑작스러운 그 공격은, 20만 년 전의 부족 우두머리가 세운 사회관례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주 하느

misunderstandings, they often found it necessary, at least once a year, to permit the tribal stone fights. The clan would divide up into two groups and engage in an all-day battle. And this for no other reason than just the fun of it; they really enjoyed fighting.

70:1.7 (784.3) Warfare persists because man is human, evolved from an animal, and all animals are bellicose. Among the early causes of war were:

70:1.8 (784.4) 1. *Hunger*, which led to food raids. Scarcity of land has always brought on war, and during these struggles the early peace tribes were practically exterminated.

70:1.9 (784.5) 2. *Woman scarcity* — an attempt to relieve a shortage of domestic help. Woman stealing has always caused war.

70:1.10 (784.6) 3. *Vanity* — the desire to exhibit tribal prowess. Superior groups would fight to impose their mode of life upon inferior peoples.

70:1.11 (784.7) 4. *Slaves* — need of recruits for the labor ranks.

70:1.12 (784.8) 5. *Revenge* was the motive for war when one tribe believed that a neighboring tribe had caused the death of a fellow tribesman. Mourning was continued until a head was brought home. The war for vengeance was in good standing right on down to comparatively modern times.

70:1.13 (784.9) 6. *Recreation* — war was looked upon as recreation by the young men of these early times. If no good and sufficient pretext for war arose, when peace became oppressive, neighboring tribes were accustomed to go out in semifriendly combat to engage in a foray as a holiday, to enjoy a sham battle.

70:1.14 (784.10) 7. *Religion* — the desire to make converts to the cult. The primitive religions all sanctioned war. Only in recent times has religion begun to frown upon war. The early priesthoods were, unfortunately, usually allied with the military power. One of the great peace moves of the ages has been the attempt to separate church and state.

70:1.15 (784.11) Always these olden tribes made war at the bidding of their gods, at the behest of their chiefs or medicine men. The Hebrews believed in such a “God of battles”; and the narrative of their raid on the Midianites is a typical recital of the atrocious cruelty of the ancient tribal wars; this assault, with its slaughter of all the males and the later killing of all male children and all women who were not virgins, would have done honor to the mores of a tribal chieftain of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nd all this was executed in the “name

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상(以上)은 사회의 진화—종족들의 문제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 곧 사람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잔학성들은, 그 책임을 자신들의 하느님들에게 돌리려는 사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神)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 아니다.

군사적(軍事的) 자비는 인류를 더디게 찾아왔다. 심지어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히브리인들을 다스릴 때에도, 바로 이 대규모의 잔학한 행위가 계속되었다. 그녀의 지휘관은 이방인을 이긴 자신의 승리에서 “모든 무리가 칼날의 이슬이 되었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알려지게 만들었다.

종족 역사상 아주 초기에는 독약을 묻힌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손상시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행위들이 실천되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주는 대가로 다윗에게 필리스틴 사람 100명의 인피(人皮)를 당연하게 요구하였다.

초기의 전쟁은 부족들 전체간의 싸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부족 전체가 싸우는 대신에 그 부족들에게 소속된 두 개별존재가 결투를 벌였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경우처럼, 두 적군은 각자 자기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두 사람이 싸운 결과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기도 하였다.

전쟁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죄수를 삼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전쟁 행위에서 제외된 것이었고, 그 후에는 비(非)전투원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이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서 군사적 특권계급과 상비군(常備軍) 형태가 곧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한 전사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되었고, 여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싸우는 일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군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돌보았으며 전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충동하였다.

전쟁을 선포하는 실천 관행은 큰 진보를 대표하였다. 싸울 의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은 공명정대함이 나타나는 전조가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문명화된” 전쟁 규칙들이 점점 더 개발되게 되었다. 종교적인 장소 근처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관습이 되었고, 나중에는 특정한 거룩한 날에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호받을 권리가 일반적 개념이 되었다; 정치적인 망명자는 보호를 받았다.

그리하여 전쟁은 원시인 사냥으로부터 후대의 “문명화된” 국가들 간의 어느 정도 더 질서화된 형태로 점차 진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친선적 태도가 적대적 태도를 대치시키는 일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of the Lord God of Israel.”

70:1.16 (784.12) This is a narrative of the evolution of society —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problems of the races — man working out his own destiny on earth. Such atrocities are not instigated by Deity, notwithstanding the tendency of man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his gods.

70:1.17 (784.13) Military mercy has been slow in coming to mankind. Even when a woman, Deborah, ruled the Hebrews, the same wholesale cruelty persisted. Her general in his victory over the gentiles caused “all the host to fall upon the sword; there was not one left.”

70:1.18 (785.1)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the race, poisoned weapons were used. All sorts of mutilations were practiced. Saul did not hesitate to require one hundred Philistine foreskins as the dowry David should pay for his daughter Michal.

70:1.19 (785.2) Early wars were fought between tribes as a whole, but in later times, when two individuals in different tribes had a dispute, instead of both tribes fighting, the two disputants engaged in a duel. It also became a custom for two armies to stake all on the outcome of a contest between a representative chosen from each side, as in the instance of David and Goliath.

70:1.20 (785.3) The first refinement of war was the taking of prisoners. Next, women were exempted from hostilities, and then came the recognition of noncombatants. Military castes and standing armies soon developed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mbat. Such warriors were early prohibited from associating with women, and women long ago ceased to fight, though they have always fed and nursed the soldiers and urged them on to battle.

70:1.21 (785.4) The practice of declaring war represented great progress. Such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fight betokened the arrival of a sense of fairness, and this was followed by the gradual development of the rules of “civilized” warfare. Very early it became the custom not to fight near religious sites and, still later, not to fight on certain holy days. Next came the general recognition of the right of asylum; political fugitives received protection.

70:1.22 (785.5) Thus did warfare gradually evolve from the primitive man hunt to the somewhat more orderly system of the later-day “civilized” nations. But only slowly does the social attitude of amity displace that of enmity.

제 2 장. 전쟁의 사회적 가치

2. THE SOCIAL VALUE OF WAR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격렬한 전쟁은 사회적

70:2.1 (785.6) In past ages a fierce war would institute

인 변화를 가져왔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10,000년이 걸려야 발생할 수 있을 그러한 새로운 관념들의 채택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전쟁에서 이러한 특정한 이점들을 얻기 위하여 치러야하는 무시무시한 대가는, 사회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야만 상태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문명화된 이성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강력한 약이며, 매우 큰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다; 종종 특정한 사회적 무질서들을 고치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때때로 환자를 죽이고,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적인 방어를 위한 계속적인 필요성은 세롭고도 진보된 많은 사회적 조절들을 이룩하였다. 오늘날의 사회는, 처음에는 전적으로 군사적(軍事的)인 것이었고 지금도 전쟁의 덕분으로 형성된 무도화, 무리를 훈련시키는 초기 형태들 중의 하나에 신세를 진, 많은 유용한 혁신들에 의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나간 문명화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오고 있다:

1. 강요된 단련, 강제적인 협동.
2. 불굴의 마음과 용기를 높이 평가함.
3. 민족주의를 조성하고 육성시킴.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도태시킴.
5. 원시적인 평등과 선택적으로 계급화 된 사회에 대한 환상을 약화시킴.

전쟁은 특정한 진화적이고 선택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노예제도와 같은 것은 문명화가 서서히 진척됨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고대의 전쟁들로 말미암아 여행과 문화적 교류가 증진되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이제는 현대적 수송 그리고 통신 방법들에 의해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전쟁들은 국가들을 강화시켰지만, 현대적 투쟁들은 개화된 문화를 붕괴시켰다. 고대의 전쟁은 다수의 열등한 민족들이 격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적 충돌의 최종 결과는 가장 우수한 인간 혈통들의 선택적인 멸종이다. 초기의 전쟁들은 조직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현대 산업의 목적이 되었다. 지난 시대 동안 전쟁은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종의 사회적 효소(酵素)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제 야망과 발명에 의해서 더 잘 달성된다. 고대의 전쟁은 전쟁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하였지만, 현대인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해 오고 있다. 전쟁은 과거에 가치 있는 많은 목적들을 만족시켰고, 문명의 건설에서 하나의 필요 불가결한 발판이 되어 왔지만, 그러나 급속하게 문화적 파산이 되어가고 있다.—전쟁을 원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끔찍한 손실과 비례하는, 사회적 이득에 대한 배당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여지가 없다.

의사들은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한 때 믿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 그들은 그 병들 대부분에 대한 보다 나은 치

social changes and facilitate the adoption of new ideas such as would not have occurred naturally in ten thousand years. The terrible price paid for these certain war advantages was that society was temporarily thrown back into savagery; civilized reason had to abdicate. War is strong medicine, very costly and most dangerous; while often curative of certain social disorders, it sometimes kills the patient, destroys the society.

70:2.2 (785.7) The constant necessity for national defense creates many new and advanced social adjustments. Society, today, enjoys the benefit of a long list of useful innovations which were at first wholly military and is even indebted to war for the dance, one of the early forms of which was a military drill.

70:2.3 (785.8) War has had a social value to past civilizations because it:

70:2.4 (785.9) 1. Imposed discipline, enforced co-operation.

70:2.5 (785.10) 2. Put a premium on fortitude and courage.

70:2.6 (785.11) 3. Fostered and solidified nationalism.

70:2.7 (785.12) 4. Destroyed weak and unfit peoples.

70:2.8 (785.13) 5. Dissolved the illusion of primitive equality and selectively stratified society.

70:2.9 (785.14) War has had a certain evolutionary and selective value, but like slavery, it must sometime be abandoned as civilization slowly advances. Olden wars promoted travel and cultural intercourse; these ends are now better served by modern methods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lden wars strengthened nations, but modern struggles disrupt civilized culture. Ancient warfare resulted in the decimation of inferior peoples; the net result of modern conflict is the selective destruction of the best human stocks. Early wars promoted organization and efficiency, but these have now become the aims of modern industry. During past ages war was a social ferment which pushed civilization forward; this result is now better attained by ambition and invention. Ancient warfare supported the concept of a God of battles, but modern man has been told that God is love. War has served many valuable purposes in the past, it has been an indispensable scaffolding in the building of civilization, but it is rapidly becoming culturally bankrupt — incapable of producing dividends of social gain in any way commensurate with the terrible losses attendant upon its invocation.

70:2.10 (786.1) At one time physicians believed in bloodletting as a cure for many diseases, but they have since discovered better remedies for most of

료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에, 나라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들을 발견하는 일이 확실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유란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적인 군사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서 거대한 투쟁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이 투쟁은 목자-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의 투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만일 산업주의가 군사주의를 이기려면, 그것은 산업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피해야만 한다. 유란시아에서 싹트고 있는 산업의 위기들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를 향하는 강력한 풍조, 영적으로 눈이 멀어짐.

2. 재물의-힘을 경배, 가치의 왜곡.

3. 사치의 악, 문화적 미성숙.

4. 게으름의 점점 증가되는 위험, 봉사의 무감각

5. 바람직하지 않은 종족 관용의 성장, 생물학적 퇴보.

6. 표준화된 산업 노예화의 위협, 개인성 침체. 노동은 고상한 것이지만, 고역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군사주의는 독재적이고 잔인—야만적—하다. 그것은 정복자들 속에서는 사회적 조직을 증진시키지만, 피정복자들은 집대성이-해체된다. 산업주의는 보다 문명화된 것이며, 독창력 제고(提高)와 개별주의 장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되어야만 한다. 사회는 모든 면에서 기원성을 육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전쟁을 찬양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문명의 계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그것을 대신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욱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만일 그러한 충분한 대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물질적인 행복을 위하여 평화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그리고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인간 종족들의 자아-보존 반응들 중의 하나인 영원히 누적되는 감정들과 에너지들을 해방시키도록 고안된 집단적 충동을 주기적으로 폭발시키는 선천적인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가 평화적인 대용물들을 현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결코 평화를 정상적인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도, 전쟁은 오만한 개별주의자들로 구성된 종족으로 하여금 크게 집중된 권한—우두머리 집행자—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체험적 훈련소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구식 전쟁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인(巨人)을 영도자관 계로 삼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이렇게 하

these disorders. And so must the international bloodletting of war certainly give place to the discovery of better methods for curing the ills of nations.

70:2.11 (786.2) The nations of Urantia have already entered upon the gigantic struggle between nationalistic militarism and industrialism, and in many ways this conflict is analogous to the agelong struggle between the herder-hunter and the farmer. But if industrialism is to triumph over militarism, it must avoid the dangers which beset it. The perils of budding industry on Urantia are:

70:2.12 (786.3) 1. The strong drift toward materialism, spiritual blindness.

70:2.13 (786.4) 2. The worship of wealth-power, value distortion.

70:2.14 (786.5) 3. The vices of luxury, cultural immaturity.

70:2.15 (786.6) 4. The increasing dangers of indolence, service insensitivity.

70:2.16 (786.7) 5. The growth of undesirable racial softness, biologic deterioration.

70:2.17 (786.8) 6. The threat of standardized industrial slavery, personality stagnation. Labor is ennobling but drudgery is benumbing.

70:2.18 (786.9) Militarism is autocratic and cruel — savage. It promotes social organization among the conquerors but disintegrates the vanquished. Industrialism is more civilized and should be so carried on as to promote initiative and to encourage individualism. Society should in every way possible foster originality.

70:2.19 (786.10) Do not make the mistake of glorifying war; rather discern what it has done for society so that you may the more accurately visualize what its substitutes must provide in order to continue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if such adequate substitutes are not provided, then you may be sure that war will long continue.

70:2.20 (786.11) Man will never accept peace as a normal mode of living until he has been thoroughly and repeatedly convinced that peace is best for his material welfare, and until society has wisely provided peaceful substitutes for the gratification of that inherent tendency periodically to let loose a collective drive designed to liberate those ever-accumulating emotions and energies belonging to the self-preservation reactions of the human species.

70:2.21 (786.12) But even in passing, war should be honored as the school of experience which compelled a race of arrogant individualists to submit themselves to highly concentrated authority — a chief executive. Old-fashioned war did select the innately great men for leadership, but modern

지 않는다. 영도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회는 이제 평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산업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자들에게로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제 3 장. 초기의 인간 관계적-연합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떠도는 무리밖에 없었고, 아이들조차도 그것의 공동 재산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진화하는 가정이 떠도는 무리를 대신하였고, 반면에 씨족과 부족이 창발하여 사회 단위를 이루었다.

성(性)에 대한 갈망과 모성애가 가족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부 형태는 가족을 초월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까지 출현하지 못하였다. 가족이 형성되기 전의 떠도는 집단 시대에는, 비공식적으로 선택된 개별존재들이 영도자관계 역할을 하였다.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은 이러한 원시적 단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없다.

혈통으로 묶인 가족들이 씨족으로 연합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진화되어 부족, 지역적인 공동체들을 이루게 되었다.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친족관계 씨족들 간의 부족 체제를 이루도록 강요하였지만, 이러한 초기의 원시적 집단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내부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묶일 수 있게 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유란시아의 평화는, 평화에 대한 환상적인 계획의 온통 정서적인 꾀변에 의해서보다는 국제 교역 체제들에 의해서 훨씬 더 증진될 것이다. 교역 관계는 언어의 발달에 의해서, 그리고 개선된 교통 방법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수송 수단에 의해서 촉진되어 왔다.

공통 언어의 부재(不在)는 평화를 지키는 집단들의 성장을 항상 방해하였지만, 현대적 무역에 있어서는 돈이 보편적 언어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주로 산업 시장에 의해서 결합된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증강될 때 문명을 크게 증진시킨다.

초기 시대에 있어서 각 부족은 증가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동심원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모든 낯선 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이 한 때의 관습이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옛 관념은 씨족의 일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였다; 씨족에 소속되면 죽은 뒤에 생존된다고 믿었다—영원한 삶에 대한 최초의 개념들 중의 하나였다.

서로의 피를 마심으로써 양자(養子) 결연이 이루어지는 의식을 행하였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에 침을 서로 나눴는데, 이것이 사교적 키스의 실천 관행의 고대 기원이다. 그리고 결혼이든지 양자 결연이든지,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모든 의식의 끝에는 항상 축제가 열렸다.

war no longer does this. To discover leaders society must now turn to the conquests of peace: industry, science, and social achievement.

3. EARLY HUMAN ASSOCIATIONS

70:3.1 (787.1) In the most primitive society the *horde* is everything; even children are its common property. The evolving family displaced the horde in child rearing, while the emerging clans and tribes took its place as the social unit.

70:3.2 (787.2) Sex hunger and mother love establish the family. But real government does not appear until superfamily groups have begun to form. In the prefamily days of the horde, leadership was provided by informally chosen individuals. The African Bushmen have never progressed beyond this primitive stage; they do not have chiefs in the horde.

70:3.3 (787.3) Families became united by blood ties in clans, aggregations of kinsmen; and these subsequently evolved into tribes, territorial communities. Warfare and external pressure forced the tribal organization upon the kinship clans, but it was commerce and trade that held these early and primitive groups together with some degree of internal peace.

70:3.4 (787.4) The peace of Urantia will be promoted far more b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an by all the sentimental sophistry of visionary peace planning. Trade relations have been facilitated by development of language and by improved method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by better transportation.

70:3.5 (787.5) The absence of a common language has always impeded the growth of peace groups, but money has become the universal language of modern trade. Modern society is largely held together by the industrial market. The gain motive is a mighty civilizer when augmented by the desire to serve.

70:3.6 (787.6) In the early ages each tribe was surrounded by concentric circles of increasing fear and suspicion; hence it was once the custom to kill all strangers, later on, to enslave them. The old idea of friendship meant adoption into the clan; and clan membership was believed to survive death — one of the earliest concepts of eternal life.

70:3.7 (787.7) The ceremony of adoption consisted in drinking each other's blood. In some groups saliva was exchanged in the place of blood drinking, this being the ancient origin of the practice of social kissing. And all ceremonies of association, whether marriage or adoption, were always terminated by feasting.

후대에는, 피를 섞은 붉은 포도주가 사용되었고, 결국에는 포도주만을 마심으로써 양자 결합 의식을 확인하였으며, 그것은 그 포도주 잔에 손을 댄으로써 승인을 표명하였고 그것을 다 비워지도록 마심으로써 완료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양자 결합 의식으로부터 변형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그들의 아랍 조상들은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양자로 받아들여진 이방인을 형제우애로서 친절하게 대우하였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낯선 사람들을 너희 중에 태어난 사람처럼 대할 것이며, 너 자신처럼 그를 사랑해야 한다.”

“손님과 의 우정”은 잠시 동안 환대하는 관례였다. 방문하였던 손님이 떠날 때에는, 접시를 둘로 쪼개서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줌으로써 제삼자가 나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소개장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손님들은 자기들의 여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빚을 갚는 것이 관례였다. 옛 시대의 이야기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냥이나 추수하는 시기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사회관례가 생기게 되었다.

최초의 평화 조약은 “피로 맺는 계약”이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부족들의 평화 사절들이 만나서 경의를 표한 후에 피가 흐를 때까지 피부를 찢었으며; 서로의 피를 빨아 마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였다.

가장 오래된 평화 사절단은, 한 때 자기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성(性)적 충족을 주기 위해 선택한 처녀들을 거느린 대표단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쟁의 충동을 제거하는 일에 성(性) 욕망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공경을 받은 부족은 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면서 처녀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 후부터 평화적 관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 족장 가족들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제 4 장. 씨족과 부족

최초의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씨족, 부족,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현대의 지역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아직도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평화 집단들이 오래 전부터 국가들을 포용하면서 혈통에 의한 결속을 넘어 확대하여 왔다는 사실은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씨족들은 부족 내에서 혈통으로 묶인 집단들이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공통 이해 관계를 소유하게 되었다:

1.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음.
2. 동일한 종교적 토당을 모심.

70:3.8 (787.8) In later times, blood diluted with red wine was used, and eventually wine alone was drunk to seal the adoption ceremony, which was signified in the touching of the wine cups and consummated by the swallowing of the beverage. The Hebrews employed a modified form of this adoption ceremony. Their Arab ancestors made use of the oath taken while the hand of the candidate rested upon the generative organ of the tribal native. The Hebrews treated adopted aliens kindly and fraternally. “The stranger that dwells with you shall be as one born among you, and you shall love him as yourself.”

70:3.9 (787.9) “Guest friendship” was a relation of temporary hospitality. When visiting guests departed, a dish would be broken in half, one piece being given the departing friend so that it would serve as a suitable introduction for a third party who might arrive on a later visit. It was customary for guests to pay their way by telling tales of their travels and adventures. The storytellers of olden times became so popular that the mores eventually forbade their functioning during either the hunting or harvest seasons.

70:3.10 (788.1) The first treaties of peace were the “blood bonds.” The peace ambassadors of two warring tribes would meet, pay their respects, and then proceed to prick the skin until it bled; whereupon they would suck each other’s blood and declare peace.

70:3.11 (788.2) The earliest peace missions consisted of delegations of men bringing their choice maidens for the sex gratification of their onetime enemies, the sex appetite being utilized in combating the war urge. The tribe so honored would pay a return visit, with its offering of maidens; whereupon peace w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soon intermarriages between the families of the chiefs were sanctioned.

4. CLANS AND TRIBES

70:4.1 (788.3) The first peace group was the family, then the clan, the tribe, and later on the nation, which eventually became the modern territorial state. The fact that the present-day peace groups have long since expanded beyond blood ties to embrace nations is most encouraging, despite the fact that Urantia nations are still spending vast sums on war preparations.

70:4.2 (788.4) The clans were blood-tie groups within the tribe, and they owed their existence to certain common interests, such as:

- 70:4.3 (788.5) 1. Tracing origin back to a common ancestor.
- 70:4.4 (788.6) 2. Allegiance to a common religious

3. 같은 사투리를 사용함.
4. 공동 거주지에서 생활함.
5. 동일한 적을 두려워 함.
6. 공통의 군사적 체험을 갖고 있음.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부족장에게 복종하였다; 초기의 부족 정부는 씨족들이 느슨하게 연관된 것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부족 형태의 정부를 형성한 적이 없었다.

씨족의 평화 책임자들은 대개 모계를 통하여 지배하였고; 부족의 전쟁 책임자들은 부계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부족장과 초기 왕의 의회는 씨족장들로 구성되었는데, 매 년 몇 차례씩 그들을 왕의 현존 앞으로 소집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협조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씨족들은 지역적인 자아-관리를 통하여 유익한 효과가 있게 하기는 하였지만, 큰 규모의 강력한 국가로 자라는 것을 크게 연기시켰다.

제 5 장. 정부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최초의 기원을 갖기 마련이며, 시민 정부는 결혼과 산업 그리고 종교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의 씨족들과 원시적 부족들로부터 인간 정부의 연속적인 체제들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 체제들은 20세기 중반부의 특징을 이룬 사회와 시민의 규정 형태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변천을 거듭하였다.

가족 단위들이 점차적으로 창발함에 따라 정부도 씨족 체제, 혈통이 같은 가족들의 집단화를 통하여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첫 번째 실제 정부로서의 몸체는 원로 협의회였다. 이 규제적인 집단은, 남달리 유능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나이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지혜와 체험은, 심지어 야만인 속에서도 일찍부터 높이 인정을 받았으며, 원로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이 든 몇몇 사람들에 의한 과두정치의 이런 통치권은 점차 족장 관념으로 발전되었다.

원로들의 초기 협의회에서는, 모든 정부 차원의 기능들; 행정과 입법과 사법기능의 잠재성이 존재했다. 협의회가 당시의 사회관례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그것은 법정의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관례를 세울 때에는, 입법부와 같았다; 그러한 판결과 법규가 강요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였다. 그 협의회의 의장은, 후대의 부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totem.

70:4.5 (788.7) 3. Speaking the same dialect.

70:4.6 (788.8) 4. Sharing a common dwelling place.

70:4.7 (788.9) 5. Fearing the same enemies.

70:4.8 (788.10) 6. Having had a common military experience.

70:4.9 (788.11) The clan headmen were always subordinate to the tribal chief, the early tribal governments being a loose confederation of clans. The native Australians never developed a tribal form of government.

70:4.10 (788.12) The clan peace chiefs usually ruled through the mother line; the tribal war chiefs established the father line. The courts of the tribal chiefs and early kings consisted of the headmen of the clans, whom it was customary to invite into the king's presence several times a year. This enabled him to watch them and the better secure their co-operation. The clans served a valuable purpose in local self-government, but they greatly delayed the growth of large and strong nations.

5. THE BEGINNINGS OF GOVERNMENT

70:5.1 (788.7) Every human institution had a beginning, and civil government is a product of progressive evolution just as much as are marriage, industry, and religion. From the early clans and primitive tribes there gradually developed the successive orders of human government which have come and gone right on down to those forms of social and civil regulation that characterize the second third of the twentieth century.

70:5.2 (788.8) With the gradual emergence of the family units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were established in the clan organization, the grouping of consanguineous families. The first real governmental body was the *council of the elders*. This regulative group was composed of old men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ome efficient manner. Wisdom and experience were early appreciated even by barbaric man, and there ensued a long age of the domination of the elders. This reign of the oligarchy of age gradually grew into the patriarchal idea.

70:5.3 (789.1) In the early council of the elders there resided the potential of all governmental function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When the council interpreted the current mores, it was a court; when establishing new modes of social usage, it was a legislature; to the extent that such decrees and enactments were enforced, it was the executive. The chairman of the council was one of the forerunners of the later tribal chief.

어떤 부족들의 협의회에는 여성 회원들도 있었고, 때때로 여성이 다스리는 부족들도 많이 있었다. 적색 인종의 어떤 부족들은 “7인 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통치를 따르는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유지하였다.

논쟁하는 사회에 의해서는 평화는 물론 전쟁도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원시적인 “상담”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씨족장들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무리는 한 사람의 강력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를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배웠던 것이다. 전쟁은 항상 왕을-만드는 자가 되어왔다.

처음에는 전쟁을 담당하는 우두머리들이 오직 군사적 봉사만을 위하여 선정되었고, 평화 시대에는 그들의 권한의 일부가 해제되곤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의무는 더욱 사회적 본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도 권한을 갖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통치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오래지 않아서 다음 전쟁이 이어지도록 주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초기에 전쟁을 주관한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군사적 봉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약간의 우두머리들이 선정되었는데, 보기 드문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능력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적색 인종은 두 가지 종류의 우두머리들—족장 또는 화평케 하는 두목들과, 전쟁을 위한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두목들—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화평케 하는 통치자들은 재판관과 선생을 겸하였다.

초기의 어떤 공동체들은 주술사들에 의해서 통치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종종 두목들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한 사람이 사제와 의사 그리고 우두머리 집행자 역할을 하곤 하였다. 초기의 호화로운 휘장들이 처음에는 성직자 복장의 상징 또는 표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정부의 행정 부문이 출현하게 되었다. 씨족과 부족의 협의회는 고문 자격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후대에 나타난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원시적 정부의 모든 형태들이 여러 부족들 속에서 실제로 존속되고 있다.

제 6 장. 군주제 정부

효과적인 국가 통치는 충분한 집행 권한을 가진 한 우두머리의 도착과 함께 비로소 온 것이다. 사람은, 관념을 자질로서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개인성에게 힘을 수여함으로써만 효과적인 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통치자의 권한은 가족의 권위 또는 재산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족장의 권한이 실제

70:5.4 (788.10) Some tribes had female councils, and from time to time many tribes had women rulers. Certain tribes of the red man preserved the teaching of Onamonalonton in following the unanimous rule of the “council of seven.”

70:5.5 (788.11) It has been hard for mankind to learn that neither peace nor war can be run by a debating society. The primitive “palavers” were seldom useful. The race early learned that an army commanded by a group of clan heads had no chance against a strong one-man army. War has always been a kingmaker.

70:5.6 (788.12) At first the war chiefs were chosen only for military service, and they would relinquish some of their authority during peacetimes, when their duties were of a more social nature. But gradually they began to encroach upon the peace intervals, tending to continue to rule from one war on through to the next. They often saw to it that one war was not too long in following another. These early war lords were not fond of peace.

70:5.7 (788.13) In later times some chiefs were chosen for other than military service, being selected because of unusual physique or outstanding personal abilities. The red men often had two sets of chiefs — the sachems, or peace chiefs, and the hereditary war chiefs. The peace rulers were also judges and teachers.

70:5.8 (788.14) Some early communities were ruled by medicine men, who often acted as chiefs. One man would act as priest, physician, and chief executive. Quite often the early royal insignias had originally been the symbols or emblems of priestly dress.

70:5.9 (788.15) And it was by these steps that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gradually came into existence. The clan and tribal councils continued in an advisory capacity and as forerunners of the later appearing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Africa, today, all these forms of primitive government are in actual existence among the various tribes.

6. MONARCHIAL GOVERNMENT

70:6.1 (789.8) Effective state rule only came with the arrival of a chief with full executive authority. Man found that effective government could be had only by conferring power on a personality, not by endowing an idea.

70:6.2 (789.9) Rulership grew out of the idea of family authority or wealth. When a patriarchal kinglet

적인 왕(王)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때로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나중에는, 영웅들로부터 왕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통치 권한이 세습되었는데,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세습되는 왕권은, 전에 체험하였던, 한 왕이 죽은 때로부터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파괴를 일삼는 무정부적인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 가족은 생태학적인 우두머리를 가졌고; 씨족은 선천적인 영도자를 선출하였다; 부족과 후대의 국가는 선천적인 영도자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최고-왕권의 세습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왕가(王家)와 귀족에 대한 관념은 씨족들에게 있었던 “이름 소유권”에 대한 사회관례에 기초를 두기도 하였다.

왕권의 계승은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왕의 혈통이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물질화된 참모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왕들은 미신적 숭배를 받는 개인성들이 되었고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형태의 말투가 왕실(王室) 어법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왕과 접촉함으로써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유란시아의 어떤 민족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통치자가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미신적 숭배의 대상이었던 왕은 흔히 격리된 생활을 하였다; 너무 신성하게 여겨진 나머지, 축제 기간과 거룩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 없었다. 대개 그를 개인이 아닌 것으로 하려고 대리자가 선출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수상(首相)이 기원되었다. 내각의 최초 관원은 음식을 관리하는 자였고, 다른 직책들이 곧 뒤따라 생겨났다. 관료들은 교역과 종교를 맡아볼 수 있도록 대리자들을 선임하였다; 내각 제도의 발전은 집행 권한자들의 탈(脫)개인성구현을 향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기의 왕을 보좌하던 이 사람들은 귀족으로 선택되었고, 왕의 아내는 여왕의 존엄성을 점점 더 갖추게 되어 여자들이 더욱 존중되게 되었다.

사악한 통치자들은 독약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초기 궁정의 마술은 악마적인 것이었고; 왕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곧 죽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악랄한 폭군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았는데, 적어도 암살에 대한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주술사들과 마법사들 그리고 사제들은 왕에게 항상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되었다. 나중에는 땅을 소유한 자들, 귀족들이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씨족들과 부족들이 단순한 의도로 봉기하여 자기들의 독재자와 폭군을 타도하기도 하였다. 폐위된 통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자살을 기도하는 고대 사회의 유행이 기원되었다.

became a real king, he was sometimes called “father of his people.” Later on, kings were thought to have sprung from heroes. And still further on, rulership became hereditary, due to belief in the divine origin of kings.

70:6.3 (789.10) Hereditary kingship avoided the anarchy which had previously wrought such havoc between the death of a king and the election of a successor. The family had a biologic head; the clan, a selected natural leader; the tribe and later state had no natural leader, and this was an additional reason for making the chief-kings hereditary. The idea of royal families and aristocracy was also based on the mores of “name ownership” in the clans.

70:6.4 (790.1) The succession of kings was eventually regarded as supernatural, the royal blood being thought to extend back to the times of the materialized staff of Prince Caligastia. Thus kings became fetish personalities and were inordinately feared, a special form of speech being adopted for court usage. Even in recent times it was believed that the touch of kings would cure disease, and some Urantia peoples still regard their rulers as having had a divine origin.

70:6.5 (790.2) The early fetish king was often kept in seclusion; he was regarded as too sacred to be viewed except on feast days and holy days. Ordinarily a representative was chosen to impersonate him, and this is the origin of prime ministers. The first cabinet officer was a food administrator; others shortly followed. Rulers soon appointed representatives to be in charge of commerce and religion; and the development of a cabinet was a direct step toward depersonalization of executive authority. These assistants of the early kings became the accepted nobility, and the king's wife gradually rose to the dignity of queen as women came to be held in higher esteem.

70:6.6 (790.3) Unscrupulous rulers gained great power by the discovery of poison. Early court magic was diabolical; the king's enemies soon died. But even the most despotic tyrant was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he was at least restrained by the ever-present fear of assassination. The medicine men, witch doctors, and priests have always been a powerful check on the kings. Subsequently, the landowners, the aristocracy, exerted a restraining influence. And ever and anon the clans and tribes would simply rise up and overthrow their despots and tyrants. Deposed rulers, when sentenced to death, were often given the option of committing suicide, which gave origin to the ancient social vogue of suicide in certain circumstances.

제 7 장. 원시적 단체들과 비밀 공동체들

7. PRIMITIVE CLUBS AND SECRET

SOCIETIES

혈연 친족관계는 최초의 사회적 집단들을 확장하였다;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친족관계의 씨족이 커지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씨족간의 결혼으로 집단이 커지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생긴 복합적인 부족은 최초의 참된 정치적 주체였다.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종교 예배종파들과 정치 단체들의 출현이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비밀 공동체로 결성되었고, 기원적으로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남자들의 단체였고; 나중에는 여자들의 모임도 나타났다. 이윽고 그것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즉: 사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신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유가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어떤 금기에 대한 위반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2. 소수파의 종교 예식을 실천하기 위하여.

3. 소중한 “영”을 보존하거나 비밀을 교환할 목적으로.

4. 어떤 특별한 마법이나 마술을 즐기기 위하여.

이러한 공동체들의 강력한 비밀 엄수는,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그 부족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신비적인 힘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비밀 엄수는 허영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에 가입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다. 가입된 후에는 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사냥을 나갈 수 있는 반면; 그 전에는 여자들과 함께 식물을 채집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사춘기에 거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함으로써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약한 자로 취급받는 것은 최극 굴욕, 부족적인 망신이었다. 그 외에도 가입되지 못한 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원시 민족들은 청년기에 도달한 자녀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성욕(性慾)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춘기에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남자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그들의 교육과 훈련은 남자들의 비밀 공동체에게 위임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주요 기능들 중의 하나는 청년기에 도달한 젊은 남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생아의 탄생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남자 단체들이 다른 부족의 여자들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상업화된 매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집단들은 방종한 성관계는 꽤 없는 편이었다.

사춘기의 가입 의식은 대개 5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아-고문과 고통스럽게 상처를 내는 행위가 이 의식에 포함되었다. 할례가 이들 비밀 형제우애관계들 중의 하나를 개시하는 의식으로서 처음으로 실천되었다. 부족의 표식을 사춘기 가입식

70:7.1 (790.4) Blood kinship determined the first social groups; association enlarged the kinship clan. Inter-marriage was the next step in group enlargement, and the resultant complex tribe was the first true political body. The next advance in social development was the evolution of religious cults and the political clubs. These first appeared as secret societies and originally were wholly religious; subsequently they became regulative. At first they were men's clubs; later women's groups appeared. Presently they became divided into two classes: sociopolitical and religio-mystical.

70:7.2 (790.5) There were many reasons for the secrecy of these societies, such as:

70:7.3 (790.6) 1. Fear of incurring the displeasure of the rulers because of the violation of some taboo.

70:7.4 (790.7) 2. In order to practice minority religious rites.

70:7.5 (790.8) 3.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valuable “spirit” or trade secrets.

70:7.6 (790.9) 4. For the enjoyment of some special charm or magic.

70:7.7 (790.10) The very secrecy of these societies conferred on all members the power of mystery over the rest of the tribe. Secrecy also appeals to vanity; the initiates were the social aristocracy of their day. After initiation the boys hunted with the men; whereas before they had gathered vegetables with the women. And it was the supreme humiliation, a tribal disgrace, to fail to pass the puberty tests and thus be compelled to remain outside the men's abode with the women and children, to be considered effeminate. Besides, noninitiates were not allowed to marry.

70:7.8 (791.1) Primitive people very early taught their adolescent youths sex control. It became the custom to take boys away from parents from puberty to marriage,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being intrusted to the men's secret societies. And one of the chief functions of these clubs was to keep control of adolescent young men, thus preventing illegitimate children.

70:7.9 (791.2) Commercialized prostitution began when these men's clubs paid money for the use of women from other tribes. But the earlier groups were remarkably free from sex laxity.

70:7.10 (791.3) The puberty initiation ceremony usually extended over a period of five years. Much self-torture and painful cutting entered into these ceremonies. Circumcision was first practiced as a rite of initiation into one of these secret fraternities. The tribal marks were cut on the body as a part of

의 일부로 피부 위에 새겨 넣었다; 문신(文身)은 그러한 회원 상징의 표시에서 기원되었다.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은, 오랫동안의 굶주림과 함께, 그 젊은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삶에 대한 실체감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후대에 나타난 운동 경기들과 육체적 경연에 의해서 보다 훌륭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나 비밀 공동체들은 청년들의 도덕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는데; 사춘기 예식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는 그가 다른 남자들의 아내들에게 간섭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소년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해 동안의 종교적 수양과 단련이 있는 후에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젊은이들은 대개 짧은 기간 동안의 한가한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뒤에는 다시 돌아와 결혼하였고 부족의 금기들을 평생토록 복종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관습은 “젊은 혈기로 난봉부리기”라는 어리석은 똥판지같은 생각으로 현대까지 계속 전해 내려왔다.

후대의 많은 부족들은 여인들의 비밀 단체를 허용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강성한 처녀들로 하여금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소녀들은 가임식이 있는 후에 결혼할 자격이 주어졌고 “신부 보여주기”, 당대의 성인 축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반대하기로 서약한 여자들 계층이 일찍부터 생겼다.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의 집단과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의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되자, 마침내 공개적인 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공동체들은 실제로 최초의 학교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 집단들이 종종 서로를 괴롭힌 반면, 진보적인 어떤 부족들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과 접촉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였다.

비밀 공동체들은 주로 그들의 가임식의 신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사회 특권계급들이 형성되도록 기여하였다. 이 공동체의 회원들은 먼저 가면을 쓰고, 애도하는 의식—조상 경배—현장으로부터 기이한 존재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예식이 나중에는,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여기는 사이비 강신회(降神會)로 발전되었다. “새로운 탄생”을 내세우는 고대의 공동체들은 신호들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비밀 언어를 이용하였다; 특정한 음식들과 음료수들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밤의 경찰로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든 비밀 관계적-연합들은 서약을 부과하고, 자신감을 강요하였으며, 비밀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명령은 단원들을 위압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비를 맡는 공동체로 활약했으며, 자체체별 규칙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할 때에는 첫 번째 정탐꾼이 되었

the puberty initiation; the tattoo originated as such a badge of membership. Such torture, together with much privation, was designed to harden these youths, to impress them with the reality of life and its inevitable hardships. This purpose is better accomplished by the later appearing athletic games and physical contests.

70:7.11 (791.4) But the secret societies did aim at the improvement of adolescent morals; one of the chief purposes of the puberty ceremonies was to impress upon the boy that he must leave other men's wives alone.

70:7.12 (791.5) Following these years of rigorous discipline and training and just before marriage, the young men were usually released for a short period of leisure and freedom, after which they returned to marry and to submit to lifelong subjection to the tribal taboos. And this ancient custom has continued down to modern times as the foolish notion of “sowing wild oats.”

70:7.13 (791.6) Many later tribes sanctioned the formation of women's secret clubs, the purpose of which was to prepare adolescent girls for wifedom and motherhood. After initiation girls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were permitted to attend the “bride show,” the coming-out party of those days. Women's orders pledged against marriage early came into existence.

70:7.14 (791.7) Presently nonsecret clubs made their appearance when groups of unmarried men and groups of unattached women formed their separate organizations. These associations were really the first schools. And while men's and women's clubs were often given to persecuting each other, some advanced tribes, after contact with the Dalamatia teachers, experimented with coeducation, having boarding schools for both sexes.

70:7.15 (791.8) Secret societies contributed to the building up of social castes chiefly by the mysterious character of their initiations. The members of these societies first wore masks to frighten the curious away from their mourning rites — ancestor worship. Later this ritual developed into a pseudo seance at which ghosts were reputed to have appeared. The ancient societies of the “new birth” used signs and employed a special secret language; they also forswore certain foods and drinks. They acted as night police and otherwise functioned in a wide range of social activities.

70:7.16 (792.1) All secret associations imposed an oath, enjoined confidence, and taught the keeping of secrets. These orders awed and controlled the mobs; they also acted as vigilance societies, thus practicing lynch law. They were the first spies when the tribes were at war and the first secret

고 평화 시에는 첫 번째 비밀경찰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비양심적인 왕들이 좌불안석에 앉게 하였다. 그들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왕들은 그들 자신의 비밀경찰을 양성하였다.

이 공동체로 인하여 최초의 정치적 정당들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정당 정부는 “강한 편”과 “약한 편”의 대결로 이루어졌다. 고대(古代)에는 오로지 내란이 있는 다음에만 관리-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은 약한 편이 강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들은 빚을 독촉하기 위하여 상인들에게 고용되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통치자들에게 고용되었다. 세금 징수는 오랫동안의 투쟁을 겪었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십일조, 사냥한 것과 약탈품의 10분의 1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금은 기원적으로 왕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되었지만, 신전 예배봉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물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징수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이러한 비밀 관계적-연합들이 점점 커져서 최초의 자선 단체들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초기의 종교적 공동체—교회의 선구자—로 진화되었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마침내 여러 부족들을 참여시키게 되어, 최초의 국제적 형제우애관계가 되었다.

제 8 장. 사회 등급

인간 존재들의 정신적 육체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등급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적 계층이 없는 유일한 세계는 가장 원시적인 세계와 가장 진보된 세계이다. 문명이 태동될 때에는 아직 사회적 계층의 분화(分化)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빛과 생명의 단계에 도달한 세계는, 진화의 중간 단계들의 특징인 이와 같은 인류 구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사회가 야만적인 상태에서 미개한 상태로 발전되면서, 인간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

1. 자연적—접촉, 친족관계, 결혼; 최초의 사회적 차이는 성(性), 나이, 혈통—우두머리와 친족관계—에 기초를 두었다.

2. 개인적—능력, 인내심, 기술, 강인함을 높이 평가함; 언어 능력,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지성에 대한 인식이 곧 뒤따랐다.

3. 우연—전쟁과 이주(移住)로 말미암아 인간 집단들의 분리가 이루어짐. 계층의 진화는 정복, 승리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노예 제도는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는 최초의 전반적인 사회 분화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4. 경제적—부자와 가난한 자. 재산과 노예의

police during times of peace. Best of all they kept unscrupulous kings on the anxious seat. To offset them, the kings fostered their own secret police.

70:7.17 (792.2) These societies gave rise to the first political parties. The first party government was “the strong” vs. “the weak.” In ancient times a change of administration only followed civil war, abundant proof that the weak had become strong.

70:7.18 (792.3) These clubs were employed by merchants to collect debts and by rulers to collect taxes. Taxation has been a long struggle, one of the earliest forms being the tithe, one tenth of the hunt or spoils. Taxes were originally levied to keep up the king's house, but it was found that they were easier to collect when disguised as an offering for the support of the temple service.

70:7.19 (792.4) By and by these secret associations grew into the first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ater evolved into the earlier religious societies — the forerunners of churches. Finally some of these societies became intertribal, the first international fraternities.

8. SOCIAL CLASSES

70:8.1 (792.5) The mental and physical inequality of human beings insures that social classes will appear. The only worlds without social strata are the most primitive and the most advanced. A dawning civilization has not yet begun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levels, while a world settled in light and life has largely effaced these divisions of mankind, which are so characteristic of all intermediate evolutionary stages.

70:8.2 (792.6) As society emerged from savagery to barbarism, its human components tended to become grouped in classes for the following general reasons:

70:8.3 (792.7) 1. *Natural* — contact, kinship, and marriage; the first social distinctions were based on sex, age, and blood — kinship to the chief.

70:8.4 (792.8) 2. *Personal* — the recognition of ability, endurance, skill, and fortitude; soon followed by the recognition of language mastery, knowledge, and general intelligence.

70:8.5 (792.9) 3. *Chance* — war and emigration resulted in the separating of human groups. Class evolution was powerfully influenced by conquest, the relation of the victor to the vanquished, while slavery brought about the first general division of society into free and bond.

70:8.6 (792.10) 4. *Economic* — rich and poor. Wealth

소유는 사회의 등급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기초였다.

5. 지리적—정착된 곳이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됨. 도시와 시골은, 목자-농업인과 상인-산업인이 구분되도록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서로 틀려지게 하였다.

6. 사회적—서로 다른 집단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급들이 형성됨.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최초의 분화(分化)들 중에는, 사제-선생, 통치자-전사, 자본가-상인, 일반 노동자, 그리고 노예 사이의 구분이 있었다.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본가 계급에 들어오도록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예는 결코 자본가가 되지 못하였다.

7. 직업적—직업이 세분화되자, 그들은 배타적인 계급들과 조합들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주술사들을 포함한 전문적인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었고,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이 그 뒤에 나타났다.

8. 종교적—초기의 예배예배종파들은 씨족과 부족 내에서 자신들만의 계급을 형성하였고, 사제들의 경건과 신비주의는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별도의 사회 집단으로 영속하게 하였다.

9. 인종적—하나의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안에 둘 이상의 인종들의 현존은 대개 색깔에 의한 계급이 형성된다. 인도의 기원적 계급 제도는, 초기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색깔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10. 나이—어린이와 성인. 부족민들 중에서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감독을 받았으며, 반면에 소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진화하는 문명에게는 유연하고 변동하는 사회적 등급들이 필요불가결 하지만, 등급이 계층으로 바뀌면, 사회적 계급이 굳어지면, 사회적 안정성의 증진은 개인적 주도를 감소함으로써 얻어진다. 사회적 계층은 사람이 산업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개별존재의 발전을 가차 없이 줄이고 사회적 협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

공동체 속에서의 등급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진보하는 문명의 생물학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자원들을 재치있게 처리함으로써 그것들의 진화적 소멸을 점차적으로 이룩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1. 인종적 혈통의 생물학적 쇄신—열등한 인간 혈통을 선택적으로 도태시킴. 이것은 많은 필사자적 불평등을 근절시키게 될 것이다.

and the possession of slaves was a genetic basis for one class of society.

70:8.7 (792.11) 5. *Geographic* — classes arose consequent upon urban or rural settlement. City and country have respectively contributed to the differentiation of the herder-agriculturist and the trader-industrialist, with their divergent viewpoints and reactions.

70:8.8 (792.12) 6. *Social* — classes have gradually formed according to popular estimate of the social worth of different groups. Among the earliest divisions of this sort were the demarcations between priest-teachers, ruler-warriors, capitalist-traders, common laborers, and slaves. The slave could never become a capitalist, though sometimes the wage earner could elect to join the capitalistic ranks.

70:8.9 (793.1) 7. *Vocational* — as vocations multiplied, they tended to establish castes and guilds. Workers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professional classes, including the medicine men, then the skilled workers, followed by the unskilled laborers.

70:8.10 (793.2) 8. *Religious* — the early cult clubs produced their own classes within the clans and tribes, and the piety and mysticism of the priests have long perpetuated them as a separate social group.

70:8.11 (793.3) 9. *Racial* — the presence of two or more races within a given nation or territorial unit usually produces color castes. The original caste system of India was based on color, as was that of early Egypt.

70:8.12 (793.4) 10. *Age* — youth and maturity. Among the tribes the boy remained under the watchcare of his father as long as the father lived, while the girl was left in the care of her mother until married.

70:8.13 (793.5) Flexible and shifting social classes are indispensable to an evolving civilization, but when *class* becomes *caste*, when social levels petrify, the enhancement of social stability is purchased by diminishment of personal initiative. Social caste solves the problem of finding one's place in industry, but it also sharply curtails individual development and virtually prevents social co-operation.

70:8.14 (793.6) Classes in society, having naturally formed, will persist until man gradually achieves their evolutionary obliteration through intelligent manipulation of the biologic, intellectual, and spiritual resources of a progressing civilization, such as:

70:8.15 (793.7) 1. *Biologic renovation of the racial stocks* — the selective elimination of inferior human strains. This will tend to eradicate many mortal inequalities.

2. 그러한 생물학적 개선을 통하여 발생될 향상된 지적(知的) 힘을 교육적으로 훈련시킴.

3. 필사자들이 서로 친족관계와 형제신분을 이루는 분위기를 종교적으로 활성화시킴.

그러나 이러한 표준들은, 비록 문화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능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인내하며 조중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개선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수천 년의 기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들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종교는 혼란으로부터 문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이지만, 견고하고 정상적인 상속 체제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견고하고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받침대를 떠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제 9 장. 인간의 권리

자연은 살 수 있는 세계와 생명 이외에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원시림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듯이, 자연은 살 권리조차도 주지 않는다. 사회가 사람에게 주는 우선적인 선물은 안전이다.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그 권리들을 요구하였는데, 오늘날의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양식 공급의 보장.
2. 군사적 방어—전쟁 대비를 통한 안전.
3. 내부적 평화 유지—개인적인 폭력과 사회적인 무질서 예방.
4. 성(性) 통제—결혼, 가족 제도.
5. 재산—소유권.
6.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경쟁의 육성.
7. 청소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설비.
8. 무역과 상업의 증진—산업 개발.
9. 노동 조건과 보상에 대한 개선.
- 10 이와 같은 다른 모든 사회적 활동들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음으로써 고양(高揚)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실천 관행들의 자유 보장.

권리들이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을 때, 자연적 권리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들은 실제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온전히 사회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상대적

70:8.16 (793.8) 2. Educational training of the increased brain power which will arise out of such biologic improvement.

70:8.17 (793.9) 3. Religious quickening of the feelings of mortal kinship and brotherhood.

70:8.18 (793.10) But these measures can bear their true fruits only in the distant millenniums of the future, although much social improvement will immediately result from the intelligent, wise, and *patient* manipulation of these acceleration factors of cultural progress. Religion is the mighty lever that lifts civilization from chaos, but it is powerless apart from the fulcrum of sound and normal mind resting securely on sound and normal heredity.

9. HUMAN RIGHTS

70:9.1 (793.11) Nature confers no rights on man, only life and a world in which to live it. Nature does not even confer the right to live, as might be deduced by considering what would likely happen if an unarmed man met a hungry tiger face to face in the primitive forest. Society's prime gift to man is security.

70:9.2 (793.12) Gradually society asserted its rights and, at the present time, they are:

- 70:9.3 (793.13) 1. Assurance of food supply.
- 70:9.4 (793.14) 2. Military defense — security through preparedness.
- 70:9.5 (793.15) 3. Internal peace preservation — prevention of personal violence and social disorder.
- 70:9.6 (794.1) 4. Sex control — marriage, the family institution.
- 70:9.7 (794.2) 5. Property — the right to own.
- 70:9.8 (794.3) 6. Fostering of individual and group competition.
- 70:9.9 (794.4) 7. Provision for educating and training youth.
- 70:9.10 (794.5) 8. Promotion of trade and commerce — industrial development.
- 70:9.11 (794.6) 9.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rewards.
- 70:9.12 (794.7) 10.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s to the end that all of these other social activities may be exalted by becoming spiritually motivated.

70:9.13 (794.8) When rights are old beyond knowledge of origin, they are often called *natural rights*. But human rights are not really natural; they are entirely social. They are relative and ever

이고 항상 변화하는데, 경기 규칙과 다름이 없다—인간적 경쟁의 항상 변화하는 현상들을 지배하는 관계들의 조절이 인정됨.

한 시대에 권리로 간주되었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결함이 있고 타락한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문명을 방해할 만큼 어떤 천부적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대의 공동체, 사회관례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 때에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권리는 국가 또는 교회에 의해서 수여된 특권 또는 은혜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에 반감을 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실수하는 것이다.

약하고 열등한 사람들은 항상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국가가 강한 자들과 우월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공급하도록 항상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밖에도 그들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그러한 결핍을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관념은 문명의 산물이다; 평등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문화조차도 스스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불평등한 수용능력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선천적인 불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되어진 자연본능적 평등을 갑작스럽고 비진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람을 원시 시대의 거칠고 험한 관습으로 신속하게 내동댕이칠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제공할 수 없지만, 각자의 서로 다양하게 지니는 권리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관리-운영하기를 약속할 수 있다. 자연본성의 아이에게 자아-유지를 추구하고, 자아-영속에 참여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아-충족을 즐길 수 있는, 곧 인간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세 가지의 총합을 위한, 공정하고 평화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할 일이며 의무이다.

제 10 장. 공의(公義)의 진화

자연본능적 공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자연본능에서, 공의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이 한 가지—원인에 대한 결과의 필연적인 일치성—공의를 제공하고는 있다.

공의는, 사람이 착상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공의의 개념은 영-자질로서 부여된 마음 안에서는 잘 구성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간 세계에서는 충분히-발달된 실존으로서 솟아나지 않는다.

changing, being no more than the rules of the game — recognized adjustments of relations governing the ever-changing phenomena of human competition.

70:9.14 (794.9) What may be regarded as right in one age may not be so regarded in another. The survival of large numbers of defectives and degenerates is not because they have any natural right thus to encumber twentieth-century civilization, but simply because the society of the age, the mores, thus decrees.

70:9.15 (794.10) Few human rights were recognized in the European Middle Ages; then every man belonged to someone else, and rights were only privileges or favors granted by state or church. And the revolt from this error was equally erroneous in that it led to the belief that all men are born equal.

70:9.16 (794.11) The weak and the inferior have always contended for equal rights; they have always insisted that the state compel the strong and superior to supply their wants and otherwise make good those deficiencies which all too often are the natural result of their own indifference and indolence.

70:9.17 (794.12) But this equality ideal is the child of civilization; it is not found in nature. Even culture itself demonstrates conclusively the inherent inequality of men by their very unequal capacity therefor. The sudden and nonevolutionary realization of supposed natural equality would quickly throw civilized man back to the crude usages of primitive ages. Society cannot offer equal rights to all, but it can promise to administer the varying rights of each with fairness and equity. It is the business and duty of society to provide the child of nature with a fair and peaceful opportunity to pursue self-maintenance, participate in self-perpetua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some measure of self-gratification, the sum of all three constituting human happiness.

10. EVOLUTION OF JUSTICE

70:10.1 (794.13) Natural justice is a man-made theory; it is not a reality. In nature, justice is purely theoretic, wholly a fiction. Nature provides but one kind of justice — inevitable conformity of results to causes.

70:10.2 (794.14) Justice, as conceived by man, means getting one's rights and has, therefore, been a matter of progressive evolution. The concept of justice may well be constitutive in a spirit-endowed mind, but it does not spring full-fledgedly into existence on the worlds of space.

원시인은 모든 현상을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미개인들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누가 죽였는가를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하면서 범죄자의 동기는 전혀 무시되었다; 심판은 입혀진 상처에 따라서 내려졌다.

최초의 원시 사회에서는 여론이 직접적으로 작용되었으므로, 법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원시적인 생활 속에는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의 이웃들은 그의 행위성에 대해 책임을 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개인적인 관련사들을 살살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사회는,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각 개별존재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만 한다는 이론 위에서 규제되었다.

귀신들이 주술사들과 사제들을 통하여 공의(公義)를 실시한다는 믿음이 매우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계층들이 최초의 범죄 탐지자와 법관들이 되게 되었다. 그들이 범죄를 탐지하는 초기의 방법은 독약과 불 그리고 고통의 시련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미개한 이들 시련을 통한 재판들은 중재에서의 미숙한 기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논쟁을 정당하게 해결한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자면: 독약이 행정-처분되었을 때, 피의자가 그것을 토해내면, 그는 무죄였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시죄법들 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부간의 죄를 시험하는 방법이였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의 비행(非行)을 의심하게 되면, 그녀를 사제에게로 데려가서 자기가 의심하는 바를 말하였고, 그 후에 사제는 성전 바닥의 먼지와 거룩한 물로 만들어진 음료수를 준비하였다. 험악한 저주를 피부으면서 적당한 예식을 치른 후에, 고소된 그 아내로 하여금 더러운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만일 그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그 물이 그 여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쓴맛을 내고,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허벅다리가 썩게 되고, 그 여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어떤 계기로든지, 그 여인이 이러한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의 남편이 질투심으로 고소하였던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범죄를 감지하는 이러한 잔인한 실천들은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들에 의해서 한동안 사용되었다. 두 사람이 벌리는 결투는 신성에 의한 재판이 현대까지 생존한 것이다.

히브리인들과 반(半)문명화된 부족들이 공의(公義)로운 행정-처분을 실천하기 위해 그러한 원시적인 기법을 3,000년 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못되지만, 수집된 종교적 문서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야만적인 유물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가장 놀라운 일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스러운 부부간의 부정 행위를 탐지하고 판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러한 부당한 가르침을 필자 사람에게 주는 신성한 존재

70:10.3 (794.15) Primitive man assigned all phenomena to a person. In case of death the savage asked, not *what* killed him, but *who*? Accidental murder was not therefore recognized, and in the punishment of crime the motive of the criminal was wholly disregarded; judgment wa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injury done.

70:10.4 (795.1) In the earliest primitive society public opinion operated directly; officers of law were not needed. There was no privacy in primitive life. A man's neighbors were responsible for his conduct; therefore their right to pry into his personal affairs. Society was regulated on the theory that the group membership should have an interest in, and some degree of control over, the behavior of each individual.

70:10.5 (795.2) It was very early believed that ghosts administered justice through the medicine men and priests; this constituted these orders the first crime detectors and officers of the law. Their early methods of detecting crime consisted in conducting ordeals of poison, fire, and pain. These savage ordeals were nothing more than crude techniques of arbitration; they did not necessarily settle a dispute justly. For example: When poison was administered, if the accused vomited, he was innocent.

70:10.6 (795.3) The Old Testament records one of these ordeals, a marital guilt test: If a man suspected his wife of being untrue to him, he took her to the priest and stated his suspicions, after which the priest would prepare a concoction consisting of holy water and sweepings from the temple floor. After due ceremony, including threatening curses, the accused wife was made to drink the nasty potion. If she was guilty, “the water that causes the curse shall enter into her and become bitter, and her belly shall swell, and her thighs shall rot, and the woman shall be accursed among her people.” If, by any chance, any woman could quaff this filthy draught and not show symptoms of physical illness, she was acquitted of the charges made by her jealous husband.

70:10.7 (795.4) These atrocious methods of crime detection were practiced by almost all the evolving tribes at one time or another. Dueling is a modern survival of the trial by ordeal.

70:10.8 (795.5) It is not to be wondered that the Hebrews and other semicivilized tribes practiced such primitive techniques of justice administration three thousand years ago, but it is most amazing that thinking men would subsequently retain such a relic of barbarism within the pages of a collection of sacred writings. Reflective thinking should make it clear that no divine being ever gave mortal man such unfair instructions regarding the detection and adjudication of suspected marital

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공동체는 일찍부터 보복하는 태도;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진화하는 부족들 전체는 피로 보복하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복수가 원시적 삶의 목적이 되었지만, 종교는 이러한 초기의 부족적 실천 관행들을 크게 변경시켰다. 계시된 종교의 선생들은, “복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항상 선포하였다. 고대에 자행되었던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문율을 핑계 삼아 저지르는 지금-현재의 살해와는 전혀 다르다.

자살은 보복을 위한 비정한 방법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생전에 직접 보복을 할 수 없게 되면, 귀신이 되어 다시 돌아와 자기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매우 일반화된 이후로는, 원수의 문지방 위에서 자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흔히 상대방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원시인은 생명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관습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가함, 안락함, 종교 그리고 철학이 연합해 오면서 삶을 더욱 감미롭고 매력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단식투쟁은 고대의 이러한 복수방법의 현대적 형태이다.

진보된 부족적 법이 가장 일찍 공식화된 것들 중의 하나는, 피를 흘리는 불화를 부족의 일로 삼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도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였을 경우 그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아무튼 오늘날의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범죄에 대하여, 심지어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릇된 일을 당한 가족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실시된다.

또 다른 진보는 금기들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 형벌에 대한 규칙이었다. 이러한 벌금은 최초의 공공 재산을 형성하였다.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 역시 피로 갚는 복수 대신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손해는 대개 여자들 또는 가축으로 갚았다; 실제적인 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 대신에 화폐로 갚는 일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보상으로 바뀐 이후부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피 값을 지불하는 실천 관행을 처음으로 폐지한 민족이었다. 모세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는 그의 생명 대신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공의(公義)에 대한 책임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씨족에게, 그리고 후대에는 부족에게 부과되었다. 복수하는 일이 사적인 혈통 집단들로부터 이양되어 사회적인 집단, 국가

unfaithfulness.

70:10.9 (795.6) Society early adopted the paying-back attitude of retaliation: an eye for an eye, a life for a life. The evolving tribes all recognized this right of blood vengeance. Vengeance became the aim of primitive life, but religion has since greatly modified these early tribal practices. The teachers of revealed religion have always proclaimed, “Vengeance is mine,” says the Lord.” Vengeance killing in early times was not altogether unlike present-day murders under the pretense of the unwritten law.

70:10.10 (795.7) Suicide was a common mode of retaliation. If one were unable to avenge himself in life, he died entertaining the belief that, as a ghost, he could return and visit wrath upon his enemy. And since this belief was very general, the threat of suicide on an enemy's doorstep was usually sufficient to bring him to terms. Primitive man did not hold life very dear; suicide over trifles was common, but the teachings of the Dalamations greatly lessened this custom, while in more recent times leisure, comforts, religion, and philosophy have united to make life sweeter and more desirable. Hunger strikes are, however, a modern analogue of this old-time method of retaliation.

70:10.11 (796.1) One of the earliest formulations of advanced tribal law had to do with the taking over of the blood feud as a tribal affair. But strange to relate, even then a man could kill his wife without punishment provided he had fully paid for her. The Eskimos of today, however, still leave the penalty for a crime, even for murder, to be decreed and administered by the family wronged.

70:10.12 (796.2) Another advance was the imposition of fines for taboo violations, the provision of penalties. These fines constituted the first public revenue. The practice of paying “blood money” also came into vogue as a substitute for blood vengeance. Such damages were usually paid in women or cattle; it was a long time before actual fines, monetary compensation, were assessed as punishment for crime. And since the idea of punishment was essentially compensation, everything, including human life, eventually came to have a price which could be paid as damages. The Hebrews were the first to abolish the practice of paying blood money. Moses taught that they should “take no satisfaction for the life of a murderer, who is guilty of death;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70:10.13 (796.3) Justice was thus first meted out by the family, then by the clan, and later on by the tribe. The administration of true justice dates from the taking of revenge from private and kin groups

의 손에 넘겨진 때로부터 참된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시작되었다.

산 채로 화형 시키는 형벌이 한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한 고대의 많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으며, 모세는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성(性) 본성이 나쁜 자들은 반드시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사제의 딸”이나 다른 인도하는 시민의 딸이 대중을 상대로 매춘을 하면, “그 여자를 불로 태우는 것이” 히브리 실천 관행이었다.

반역죄—자기 부족의 연관-동료들을 “팔아-넘기거나” 배반하는—는 첫째가는 최고의 범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졌으며, 심지어는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사람에게 비슷한 형벌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죄를 막는 일에 있어서 형벌의 독독함이 그것의 확실성과 신속성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가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면, 집단 분노는 일반적으로 집단응징 법을 저절로 강력히 옹호하게 된다; 성역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집단 분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되었다. 집단응징과 결투는 사적인 배상을 국가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개별존재의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11 장. 법과 법정

새벽에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관례와 법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관례는 발달 과정에 있는 법과 치안 규정들이다. 오랫동안의 형성 과정이 지나면, 모호하였던 사회관례가 정확한 법과 명확한 규정들 그리고 잘-정의된 사회적 풍습들로 구체화된다.

법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금지적이지만; 문명이 진보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지향적(指向的)이 된다. 초기의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삶의 권리를 개별존재에게 부여하였다. 개별존재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들과 해방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해방의 삭감을 내포하였고, 이것은 원시적 법인 금기에 의해서 효력이 발휘되었다. 금기에 대한 모든 관념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원시 공동체가 그 체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초기에는 공의(公義)의 행정-처분이 금기들의 강요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원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오직 자기 부족민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에는 다른 윤리 규범을 적용하였던 후대의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증언을 더욱 진실 되게 만들기 위하여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맹세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맹세는 자신에 대한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에는 어떤 개별존재도 자기가 출생된

and lodging it in the hands of the social group, the state.

70:10.14 (796.4) Punishment by burning alive was once a common practice. It was recognized by many ancient rulers, including Hammurabi and Moses, the latter directing that many crimes, particularly those of a grave sex nature, should be punished by burning at the stake. If “the daughter of a priest” or other leading citizen turned to public prostitution, it was the Hebrew custom to “burn her with fire.”

70:10.15 (796.5) Treason — the “selling out” or betrayal of one’s tribal associates — was the first capital crime. Cattle stealing was universally punished by summary death, and even recently horse stealing has been similarly punished. But as time passed, it was learned that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was not so valuable a deterrent to crime as was its certainty and swiftness.

70:10.16 (796.6) When society fails to punish crimes, group resentment usually asserts itself as lynch law; the provision of sanctuary was a means of escaping this sudden group anger. Lynching and dueling represent the unwillingness of the individual to surrender private redress to the state.

11. LAWS AND COURTS

70:11.1 (796.7) It is just as difficult to draw sharp distinctions between mores and laws as to indicate exactly when, at the dawning, night is succeeded by day. Mores are laws and police regulations in the making. When long established, the undefined mores tend to crystallize into precise laws, concrete regulations, and well-defined social conventions.

70:11.2 (796.8) Law is always at first negative and prohibitive; in advancing civilizations it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and directive. Early society operated negatively, granting the individual the right to live by imposing upon all others the command, “you shall not kill.” Every grant of rights or liberty to the individual involves curtailment of the liberties of all others, and this is effected by the taboo, primitive law. The whole idea of the taboo is inherently negative, for primitive society was wholly negative in its organization, and the early administration of justice consisted in the enforcement of the taboos. But originally these laws applied only to fellow tribesmen, as is illustrated by the later-day Hebrews, who had a different code of ethics for dealing with the gentiles.

70:11.3 (797.1) The oath originated in the days of Dalamatia in an effort to render testimony more truthful. Such oaths consisted in pronouncing a curse upon oneself. Formerly no individual would

집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범죄는 부족의 사회관례를 범하는 것이었고, 죄는 귀신의 지지를 받는 금기들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범죄와 죄를 분리시키지 못함으로써 기인된 오랫동안의 혼란이 있었다.

자아-이익이 죽이는 것에 대해 금기를 확립했고, 공동체는 그것을 전통적인 사회관례로 정당화시켰고, 반면에 종교는 그 관습을 도덕적 법으로 신성화 시켰으며, 그리하여 세 가지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종교적인 상태가 되었다. 공동체는, 종교의 지지를 받는 권리들을 갖지 못하였던 초기 시대 동안에는 계속 묻혀있지 못하였다; 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이 도덕과 사회적 경찰력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법, 금기들이 하느님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법은 오랜 세월의 인간 체험, 결정화되고 또 정당하다고 공인된 여론을 성문화시킨 것이다. 사회관례는 누적된 체험으로 이루어진 기본 자료였는데, 통치자들은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성문법을 구체화시켰다. 고대의 재판관은 적용할 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만 “그것이 관습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법정의 결정들 중에서 관례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동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성문화된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깊은 인상과 병합된 사회적 상황을 바꾸도록 진보적으로 조화시킬 준비를 한다.

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졌다:

1. 분쟁이 일어난 재물을 파괴시킴으로써.
2. 무력에 의해서—분쟁자들이 결투로 해결함.
3. 중재에 의해서—제삼자(第三者)가 결정함.
4. 원로에게 탄원함으로써—나중에 법정에 탄원함.

초심 법원은 주먹다짐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었고, 재판관은 단순히 시합을 속행시키는 심판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그 싸움이 규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도록 주선하였다. 법정에서의 투쟁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어느 한편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각각 재판관에게 비용과 벌금을 제출하였다. “실력이 정의로 통하는 상태였다.” 그 후에는 육체적인 싸움 대신에 언쟁으로 대체되었다.

원시적인 공의(公義)에 대한 전반적 관념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여 대중의 무질서와 사적(私的)인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오늘날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분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기

testify against his native group.

70:11.4 (797.2) Crime was an assault upon the tribal mores, sin was the transgression of those taboos which enjoyed ghost sanction, and there was long confusion due to the failure to segregate crime and sin.

70:11.5 (797.3) Self-interest established the taboo on killing, society sanctified it as traditional mores, while religion consecrated the custom as moral law, and thus did all three conspire in rendering human life more safe and sacred. Society could not have held together during early times had not rights had the sanction of religion; superstition was the moral and social police force of the long evolutionary ages. The ancients all claimed that their olden laws, the taboos, had been given to their ancestors by the gods.

70:11.6 (797.4) Law is a codified record of long human experience, public opinion crystallized and legalized. The mores were the raw material of accumulated experience out of which later ruling minds formulated the written laws. The ancient judge had no laws. When he handed down a decision, he simply said, “It is the custom.”

70:11.7 (797.5) Reference to precedent in court decisions represents the effort of judges to adapt written laws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society. This provides for progressive adaptation to altering social conditions combined with the impressiveness of traditional continuity.

70:11.8 (797.6) Property disputes were handled in many ways, such as:

- 70:11.9 (797.7) 1. By destroying the disputed property.
- 70:11.10 (797.8) 2. By force — the contestants fought it out.
- 70:11.11 (797.9) 3. By arbitration — a third party decided.
- 70:11.12 (797.10) 4. By appeal to the elders — later to the courts.

70:11.13 (797.11) The first courts were regulated fistic encounters; the judges were merely umpires or referees. They saw to it that the fight was carried on according to approved rules. On entering a court combat, each party made a deposit with the judge to pay the costs and fine after one had been defeated by the other. “Might was still right.” Later on, verbal arguments were substituted for physical blows.

70:11.14 (797.12) The whole idea of primitive justice was not so much to be fair as to dispose of the contest and thus prevent public disorder and private violence. But primitive man did not so much resent what would now be regarded as an injustice;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those who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명의 지위는 그 법정의 철저함과 공정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재판관의 고결한-순수성에 의해서 매우 정확하게 결정된다.

제 12 장. 시민 권한의 배분

정부의 진화 안에서 가장 큰 투쟁은 힘의 집중과 관계되어왔다. 우주 행정-관리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속에 있는 진화하는 민족들이, 잘-조화-협동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서들 사이에 적당한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거주되는 세계들 위에 있는 진보적인 민족들이 시민 정부의 대표자 유형의 의해서 가장 잘 규제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배워 왔다.

원시적인 권한이 힘, 육체적 힘을 바탕으로 하였던 반면, 이상적인 정부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영도자관계가 선정되는 대표자 체제이지만, 야만적인 시대에는 한결같이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대표자로 구성된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권한의 분할과 합일 사이에 있었던 오랫동안의 갈등 속에서 독재자 체제가 선택되었다. 원로들로 구성된 원시적인 협의회가 가졌던 초기의 산만한 힘은 절대 군주라는 인물에게 점점 더 집중되었다. 실제적인 왕이 출현한 이후 원로들의 집단은 준(準)입법 그리고 사법 고문단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였다; 나중에는 조화-협동한 입장의 입법 기관들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최고 판결 법원이 입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수립되었다.

왕은 사회관례, 기원적 법 또는 불문율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나중에 입안된 법, 구체화된 여론을 집행하였다. 비록 더디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여론을 제시하기 위한 대중 집회같은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초기의 왕들은 사회관례에 의해서—전통 또는 여론에 의해서—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이르러서 유란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이들 사회관례를 정부를 위한 기본 문서에 성문화시켰다.

유란시아의 인간들은 해방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자신들의 정부 체계를 구성해야만 한다; 자체 헌법 또는 다른 시민권 헌장들과 행정-관리적 절차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우두머리 집행자로 선택해야만 한다. 입법부에 소속되는 대표자들의 경우에는, 지적으로 분별화되고 도덕적으로 그러한 신성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만 한다. 오직 천부적인 재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사람들과 충분한 체험에 의해서 현명하게 된 자들만이, 상급 법원과 대법원의 재판관들로 선출되어야만 한다.

had power would use it selfishly. Nevertheless, the status of any civilization may be very accurately determined by the thoroughness and equity of its courts and by the integrity of its judges.

12. ALLOCATION OF CIVIL AUTHORITY

70:12.1 (797.13) The great struggle in the evolution of government has concern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universe administrators have learned from experience that the evolutionary peoples on the inhabited worlds are best regulated by the representative type of civil government when there is maintained proper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well-co-ordinated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70:12.2 (798.1) While primitive authority was based on strength, physical power, the ideal government is the representative system wherein leadership is based on ability, but in the days of barbarism there was entirely too much war to permit representative government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long struggle between division of authority and unity of command, the dictator won. The early and diffuse powers of the primitive council of elders were gradually concentrated in the person of the absolute monarch. After the arrival of real kings the groups of elders persisted as quasi-legislative-judicial advisory bodies; later on, legislatures of co-ordinate status made their appearance, and eventually supreme courts of adjudication were established separate from the legislatures.

70:12.3 (798.2) The king was the executor of the mores, the original or unwritten law. Later he enforced the legislative enactments, the crystallization of public opinion. A popular assembly as an expression of public opinion, though slow in appearing, marked a great social advance.

70:12.4 (798.3) The early kings were greatly restricted by the mores — by tradition or public opinion. In recent times some Urantia nations have codified these mores into documentary bases for government.

70:12.5 (798.4) Urantia mortals are entitled to liberty; they should create their systems of government; they should adopt their constitutions or other charters of civil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having done this, they should select their most competent and worthy fellows as chief executives. For representatives in the legislative branch they should elect only those who are qualified intellectually and morally to fulfill such sacred responsibilities. As judges of their high and supreme tribunals only those who are endowed with natural ability and who have been made wise by replete experience should be chosen.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해방에 대한 현장을 채택해야만 하고, 그 후에 그것의 현명하고 지적이며 대담한 해석을 끝에 덧붙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의한 공인되지 않는 힘 탈취.
2. 무식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선동자의 음모.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4. 평범함이 통치하는 딱 막힌 상황
5. 악덕한 소수에 의한 지배
6. 독재자가 될 야심차고 영리한 자에 의한 통제.
7. 공황상태의 비참한 혼란.
8. 양심 없는 자들의 착취.
9. 국가에 의하여 시민이 세금에 노예화되는 것.
- 10 사회적 경제적 공평성을 이루지 못함
- 11 교회와 국가의 연합.
- 12 개인적 해방의 상실.

이것들은, 진화하는 세계의 통치자들로서 활동하는 대의정부(代議政府)의 기구들 위에 군림하는 합법적 법원들을 두는 목적들과 목표들이다.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류는, 관리-행정 계통들을 완전하게 하고, 항상 변하는 현재적 요구들에게 그것들을 적응시키며, 정부 내부에서의 힘 분배를 개선하며, 그리고 나서 관리-행정적 영도자를 진정으로 현명한 자들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신성하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가 있지만, 그러한 것은 계시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 두루 각 행성의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그리고 힘들어서 발견해야 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70:12.6 (798.5) If men would maintain their freedom, they must, after having chosen their charter of liberty, provide for its wise, intelligent, and fearless interpretation to the end that there may be prevented:

- 70:12.7 (798.6) 1. Usurpation of unwarranted power by either the executive or legislative branches.
- 70:12.8 (798.7) 2. Machinations of ignorant and superstitious agitators.
- 70:12.9 (798.8) 3. Retardation of scientific progress.
- 70:12.10 (798.9) 4. Stalemate of the dominance of mediocrity.
- 70:12.11 (798.10) 5. Domination by vicious minorities.
- 70:12.12 (798.11) 6. Control by ambitious and clever would-be dictators.
- 70:12.13 (798.12) 7. Disastrous disruption of panics.
- 70:12.14 (798.13) 8. Exploitation by the unscrupulous.
- 70:12.15 (798.14) 9. Taxation enslavement of the citizenry by the state.
- 70:12.16 (798.15) 10. Failure of social and economic fairness.
- 70:12.17 (798.16) 11. Union of church and state.
- 70:12.18 (798.17) 12. Loss of personal liberty.

70:12.19 (798.18) These are the purposes and aims of constitutional tribunals acting as governors upon the engin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on an evolutionary world.

70:12.20 (799.1) Mankind's struggle to perfect government on Urantia has to do with perfecting channels of administration, with adapting them to ever-changing current needs, with improving power distribution within government, and then with selecting such administrative leaders as are truly wise. While there is a divine and ideal form of government, such cannot be revealed but must be slowly and laboriously discovered by the men and women of each planet throughout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70:12.21 (799.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1 편 국가의 발전

⇨ 070

유랜시아 책

072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1 편 국가의 발전

섹션

소개

- 제 1 장. 태아 단계의 국가
- 제 2 장. 대의 정부의 진화
- 제 3 장. 이상적인 국가
- 제 4 장. 진보적인 문명
- 제 5 장. 경쟁의 진화
- 제 6 장. 이익 동기
- 제 7 장. 교육
- 제 8 장. 국가의 성격

소개

국가는 문명의 유익한 진화이다; 전쟁의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사회가 얻은 대표적인 순(純)이익이다. 더욱이 정치적 수완은 투쟁하는 부족들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적인 무력 다툼을 조절하기 위한 누적된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국가는 집단적인 힘을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제도이다. 결국에는 최상의 힘이 지배하게 되었고, 시민은 국가를 위하여 살거나 죽어야 한다는 절대 의무에서의 도덕적 신화와 함께 하나의 사실의 창조체—국가—를 낳았다. 그러나 국가는 신성한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의지를 동원한 지능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진화에 의해 형성된 제도이고 온통 자동적으로 기원된 것이었다.

제 1 장. 태아 단계의 국가

국가는 지역적인 사회 규제적 조직체이며, 가장 강력하고 능률적이고 영속하는 국가는 그 민족

PAPER 71

DEVELOPMENT OF THE STATE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Embryonic State
- 2. The Evolution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 3. The Ideals of Statehood
- 4. Progressive Civilization
- 5. The Evolution of Competition
- 6. The Profit Motive
- 7. Education
- 8. The Character of Statehood

INTRODUCTION

71:0.1 (800.1) THE state is a useful evolution of civilization; it represents society's net gain from the ravages and sufferings of war. Even statecraft is merely the accumulated technique for adjusting the competitive contest of force between the struggling tribes and nations.

71:0.2 (800.2) The modern state is the institution which survived in the long struggle for group power. Superior power eventually prevailed, and it produced a creature of fact — the state — together with the moral myth of the absolute obligation of the citizen to live and die for the state. But the state is not of divine genesis; it was not even produced by volitionally intelligent human action; it is purely an evolutionary institution and was wholly automatic in origin.

1. THE EMBRYONIC STATE

71:1.1 (800.3) The state is a territorial social regulative organization, and the strongest, most

이 하나의 공통 언어, 사회관례와 제도를 갖는 단일 국민으로 구성된다.

초기의 국가들은 소규모였고 모두 정복 활동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그것들은 자발적인 관계적-연합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다. 많은 국가들이 공격적인 유목민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은 평화로운 목자들 또는 정착된 농민들을 급습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다. 정복의 결과로 형성된 그러한 국가들은 강제적인 것이었고 계층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등급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등급 간의 투쟁이 항상 선택되었다.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 중에서 북쪽에 있는 부족들은 한 번도 실제적인 국가 형태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들의 느슨한 연관 체계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룩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였던 것은 이로코이스 연맹이었지만, 여섯 개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었고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현대적 국민 생활에 확실하게 필수적인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 사유재산의 획득과 상속.
2. 도시들 이외에 농업과 산업.
3. 유용하게 길들여진 동물들.
4. 실천적인 가정 조직. 이 적색 인종들은 모계 가족과 조카를 통한 상속을 유지하였다.
5. 한정된 영토.
6. 강력한 집행자 우두머리.
7. 포로들의 노예화—그들은 양자로 받아들여 지든지 아니면 대량 학살되었다.
8. 과단성 있는 정복들.

적색 인종들은 너무 민주적이었다; 그들은 좋은 정부를 가졌지만, 실패하였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정부 형태를 추구하는, 보다 발전된 백색 인종들의 문명과 일찍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결국에는 국가 형태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로마 국가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기초되었다:

1. 부계-가족.
2. 동물 길들이기와 농업.
3. 인구 집중—도시들.
4. 사유재산과 사유지.
5. 노예 제도—시민신분의 등급들.
6. 약하고 퇴보된 민족들을 정복하고 재편성

efficient, and enduring state is composed of a single nation whose people have a common language, mores, and institutions.

71:1.2 (800.4) The early states were small and were all the result of conquest. They did not originate in voluntary associations. Many were founded by conquering nomads, who would swoop down on peaceful herders or settled agriculturists to overpower and enslave them. Such states, resulting from conquest, were, perforce, stratified; classes were inevitable, and class struggles have ever been selective.

71:1.3 (800.5) The northern tribes of the American red men never attained real statehood. They never progressed beyond a loose confederation of tribes, a very primitive form of state. Their nearest approach was the Iroquois federation, but this group of six nations never quite functioned as a state and failed to surv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certain essentials to modern national life, such as:

- 71:1.4 (800.6) 1. Acquirement and inheritance of private property.
- 71:1.5 (800.7) 2. Cities plus agriculture and industry.
- 71:1.6 (800.8) 3. Helpful domestic animals.
- 71:1.7 (800.9) 4. Practical family organization. These red men clung to the mother-family and nephew inheritance.
- 71:1.8 (800.10) 5. Definite territory.
- 71:1.9 (800.11) 6. A strong executive head.
- 71:1.10 (800.12) 7. Enslavement of captives — they either adopted or massacred them.
- 71:1.11 (800.13) 8. Decisive conquests.

71:1.12 (800.14) The red men were too democratic; they had a good government, but it failed. Eventually they would have evolved a state had they not prematurely encountered the more advanced civilization of the white man, who was pursuing the governmental methods of the Greeks and the Romans.

71:1.13 (801.1) The successful Roman state was based on:

- 71:1.14 (801.2) 1. The father-family.
- 71:1.15 (801.3) 2. Agriculture and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 71:1.16 (801.4) 3. Condensation of population — cities.
- 71:1.17 (801.5) 4. Private property and land.
- 71:1.18 (801.6) 5. Slavery — classes of citizenship.
- 71:1.19 (801.7) 6. Conquest and reorganization of

함.

7. 도로망이 구축된 한정된 영토.

8. 개인적이고 강력한 통치자들.

로마 문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였던 점, 그리고 그 제국이 궁극적으로 붕괴된 요인은, 21세에서의 소년들의 해방과 소녀들의 무조건적 방면으로써, 그녀들 자신이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도록, 또는 온 땅에서 부도덕하게 되려고 해외로 나가도록 해방되었던,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착각한 제도였다.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은 이러한 개혁들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수용한 갑작스럽고 대규모적인 방법에 있었다. 로마의 붕괴는, 한 국가가 내부적인 퇴화와 연관되어 너무 갑작스럽게 확장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

국가의 태동은 지역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혈통적인 결합이 쇠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부족들 간의 연맹은 대개 정복에 의해서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모든 사소한 투쟁들과 집단 간의 차이점들을 초월하는 하나의 주권이 참된 국가의 특징인 반면에, 여러 등급과 특권계급 제도가 이전 시대의 씨족들과 부족들의 흔적으로서 후대의 국가 조직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보다 큰 영토를 갖는 후대의 국가들은 이러한 소규모의 동족으로 이루어진 씨족 집단들, 가족 체제로부터 국가 권한으로의 귀중한 과도기를 제공하는 부족 체제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투쟁을 겪어왔다. 후대의 시기 동안에는 무역과 다른 산업 관계적-연합들로부터 여러 씨족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 집대성활동의 실패는,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봉건제도처럼, 통치 기법에 있어서 국가-이전의 상태로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암흑기 동안에 지역 국가는 붕괴되었고, 성(城)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집단, 씨족과 부족 단계의 발전이 재현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와 비슷한 준(準)국가들이 지금까지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진화적인 후퇴는 아니다; 다수가, 미래에서의 국가의 배아가 되는 핵이다.

제 2 장. 대의 정부의 진화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상(理想)인데, 문명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추어라! 신중하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민주주의 속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1. 평범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함.
2. 밑바닥의 무식한 통치자들을 선택함.
3. 사회적 진화의 기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함.

weak and backward peoples.

71:1.20 (801.8) 7. Definite territory with roads.

71:1.21 (801.9) 8. Personal and strong rulers.

71:1.22 (801.10) The great weakness in Roman civilization, and a factor in the ultimate collapse of the empire, was the supposed liberal and advanced provision for the emancipation of the boy at twenty-one and the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girl so that she was at liberty to marry a man of her own choosing or to go abroad in the land to become immoral. The harm to society consisted not in these reforms themselves but rather in the sudden and extensive manner of their adoption. The collapse of Rome indicates what may be expected when a state undergoes too rapid extension associated with internal degeneration.

71:1.23 (801.11) The embryonic state was made possible by the decline of the blood bond in favor of the territorial, and such tribal federations were usually firmly cemented by conquest. While a sovereignty that transcends all minor struggles and group differences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true state, still, many classes and castes persist in the later state organizations as remnants of the clans and tribes of former days. The later and larger territorial states had a long and bitter struggle with these smaller consanguineous clan groups, the tribal government proving a valuable transition from family to state authority. During later times many clans grew out of trades and other industrial associations.

71:1.24 (801.12) Failure of state integration results in retrogression to prestate conditions of governmental techniques, such as the feudalism of the European Middle Ages. During these dark ages the territorial state collapsed, and there was a reversion to the small castle groups, the reappearance of the clan and tribal stages of development. Similar semistates even now exist in Asia and Africa, but not all of them are evolutionary reversions; many are the embryonic nucleuses of states of the future.

2. THE EVOLUTION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71:2.1 (801.13) Democracy, while an ideal, is a product of civilization, not of evolution. Go slowly! select carefully! for the dangers of democracy are:

71:2.2 (801.14) 1. Glorification of mediocrity.

71:2.3 (801.15) 2. Choice of base and ignorant rulers.

71:2.4 (801.16) 3. Failure to recognize the basic facts of social evolution.

4. 무지하고 나태한 다수파의 손에 쥐어진 만인 공통의 선거권의 위험성.

5. 여론에 노예가 됨; 다수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론, 사회 일반의 의견은 사회를 항상 지체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익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의 발전이 퇴보되는 동안에도 문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혼란시키는 일만이 문명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참된 유일한 방법이다; 강압은 임시적인 편법에 지나지 않고, 총알이 총의에 길을 비켜주면서 그에 따라, 문명의 성장은 점점 더 가속할 것이다. 여론, 사회관례는, 사회적 진화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동력이지만;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는, 비폭력적인 표현 방법을 통하여 여론이 개인의 행실과 국가 규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참으로 문명화된 정부는 여론이 개인 참정권의 힘으로 뒷받침될 때 이루어져 있었다. 대중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항상 올바르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릇된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은 올바른 길을 대표한다. 진화가 즉시 최상급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실천적 조절을 이룩한다.

대의정부의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형태가 발전하는 데에는 10개의 계단 또는 단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제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속박이 사라져야만 한다.

2. 마음의 자유.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교육—지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유는 대개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

3. 법의 권세. 인간 통치자들의 의지와 변덕스러움이, 인정된 기본적 법에 따르는 입법부의 법제정에 의해서 대치될 경우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 인간의 열망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에 있어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의 정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5. 재산의 안전 보장.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하고 통제하고 증여하고 팔고 빌려주며 후세에게 전해줄 것을 열망한다.

6.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대의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원은 자유 시민권의 고유한 특권이다.

71:2.5 (801.17) 4. Danger of universal suffrage in the hands of uneducated and indolent majorities.

71:2.6 (801.18) 5. Slavery to public opinion; the majority is not always right.

71:2.7 (802.1) Public opinion, common opinion, has always delayed society; nevertheless, it is valuable, for, while retarding social evolution, it does preserve civilization. Education of public opinion is the only safe and true method of accelerating civilization; force is only a temporary expedient, and cultural growth will increasingly accelerate as bullets give way to ballots. Public opinion, the mores, is the basic and elemental energy in social evolution and state development, but to be of state value it must be nonviolent in expression.

71:2.8 (802.2) The measure of the advance of society is directly determined by the degree to which public opinion can control personal behavior and state regulation through nonviolent expression. The really civilized government had arrived when public opinion was clothed with the powers of personal franchise. Popular elections may not always decide things rightly, but they represent the right way even to do a wrong thing. Evolution does not at once produce superlative perfection but rather comparative and advancing practical adjustment.

71:2.9 (802.3) There are ten steps, or stages, to the evolution of a practical and efficient form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ese are:

71:2.10 (802.4) 1. *Freedom of the person.* Slavery, serfdom, and all forms of human bondage must disappear.

71:2.11 (802.5) 2. *Freedom of the mind.* Unless a free people are educated — taught to think intelligently and plan wisely — freedom usually does more harm than good.

71:2.12 (802.6) 3. *The reign of law.* Liberty can be enjoyed only when the will and whims of human rulers are replaced by legislative enactments in accordance with accepted fundamental law.

71:2.13 (802.7) 4. *Freedom of speech.* Representative government is unthinkable without freedom of all forms of expression for human aspirations and opinions.

71:2.14 (802.8) 5. *Security of property.* No government can long endure if it fails to provide for the right to enjoy personal property in some form. Man craves the right to use, control, bestow, sell, lease, and bequeath his personal property.

71:2.15 (802.9) 6. *The right of petition.* Representative government assumes the right of citizens to be heard. The privilege of petition is inherent in free citizenship.

7. 제어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되어야만 한다.

8. 보편적인 투표권. 대의정부는 지능적, 효율적, 보편적 선거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정부의 성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에 의해서 언제나 결정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성(性)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성을 유지하는 반면, 투표권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재편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 될 것이다.

9. 공공의 하인들에 대한 통제. 만일 시민들이 공무원들과 공공의 하인들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현명한 기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봉사할 수도 그리고 효과적으로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다.

10. 지능적이고 훈련된 대표자.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성공적인 대의정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적합한 개별 존재들만을 공공의 직책으로 선출하는 실천들 위에서 조건이 갖추어진다. 오직 그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71:2.16 (802.10) 7. *The right to rule.* It is not enough to be heard; the power of petition must progress to the actual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71:2.17 (802.11) 8. *Universal suffrage.* Representative government presupposes an intelligent, efficient, and universal electorate. The character of such a government will ever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and caliber of those who compose it. As civilization progresses, suffrage, while remaining universal for both sexes, will be effectively modified, regrouped, and otherwise differentiated.

71:2.18 (802.12) 9. *Control of public servants.* No civil government will be serviceable and effective unless the citizenry possess and use wise techniques of guiding and controlling officeholders and public servants.

71:2.19 (802.13) 10. *Intelligent and trained representation.* The survival of democracy is dependent on successful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at is conditioned upon the practice of electing to public offices only those individuals who are technically trained, intellectually competent, socially loyal, and morally fit. Only by such provisions can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be preserved.

제 3 장. 이상적인 국가

정부의 정치적 또는 행정-관리적 형태는, 그것이 만일 시민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본질적인 것들-해방, 안전, 교육, 그리고 사회적 조화-협동을 제공한다던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가 진보하는 경로는, 국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영도자에 의해서 예시되듯이, 어떤 국가도 시민들의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하지 못한다. 무지와 이기심은 아무리 높은 유형의 정부라도 틀림없이 몰락시킬 것이다.

매우 유감이지만, 국가적인 이기주의는 사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되어왔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신조는 부족의 결속과 국가 건설에 있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편협성이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국가도 기능 활동에서의 이상적 차원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인간의 진보에 있어서 영속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편협성은 과학, 상업, 놀이 그리고 종교의 조화-협동에 의해서 최상으로 물리쳐진다.

이상적인 국가는 강력하고 조화-협동으로 작용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구의 자극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한다:

1. 인간이 서로 형제신분의 실현으로부터 유래되는 사랑의 충성심.

3. THE IDEALS OF STATEHOOD

71:3.1 (803.1) Th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form of a government is of little consequence provided it affords the essentials of civil progress — liberty, security, education, and social co-ordination. It is not what a state is but what it does that determines the course of social evolution. And after all, no state can transcend the moral values of its citizenry as exemplified in their chosen leaders. Ignorance and selfishness will insure the downfall of even the highest type of government.

71:3.2 (803.2) Much as it is to be regretted, national egotism has been essential to social survival. The chosen people doctrine has been a prime factor in tribal welding and nation building right on down to modern times. But no state can attain ideal levels of functioning until every form of intolerance is mastered; it is everlastingly inimical to human progress. And intolerance is best combated by the co-ordination of science, commerce, play, and religion.

71:3.3 (803.3) The ideal state functions under the impulse of three mighty and co-ordinated drives:

71:3.4 (803.4) 1. Love loyalty derived from the realization of human brotherhood.

2. 현명한 이상들을 기초로 하는 지능적인 애국심.

3. 행성의 사실과 필요 그리고 목표로서 해석한 조화우주적 통찰력.

이상적인 국가의 법들은 숫자가 매우 적으며, 부정적인 금기 시대로부터 탈피하여, 결과적으로 자아-통제로 발전된 개별적 해방이라는 긍정적 진보의 시대로 옮겨갔다. 고양된 국가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제촉할 뿐만 아니라, 진보하는 기계 시대에 의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결과로 이루어진 점증적인 여가시간을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들을 유도한다. 여가시간은 산출될 뿐만 아니라 소모되어야만 한다.

나태함을 허용하거나 빈곤을 묵인하는 한, 어떤 사회도 멀리까지 진보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결함이 있고 퇴화된 혈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호받고 아무 제한 없이 아이를 낳도록 허용된다면, 빈곤과 의존 상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덕 사회는 시민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자아-존중을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개별 존재들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성취 계획은 가장 높은 계층을 유지하는 문화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사회적 진화는, 최소한의 규제적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감독에 의해서 장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최소한도로 지배하면서 가장 잘 조화-협동되도록 하는 국가가 최상의 국가이다.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진화에 의해서, 시민의식, 사회적 봉사의 의무와 특권에 대한 인식의 완만한 성장에 의해서 달성되어야만 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부에서의 부담을 정치적 이권 운전자들의 관리-행정의 끝을 쫓아 따라오는, 하나의 의무로 여기면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특권으로써, 가장 큰 명예로써 그러한 직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어떤 차원이든지 문명의 지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의무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시민들의 능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룩한 다른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연방에서는, 도시들과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 숙련자들에게 의해서 수행되고 관리된다.

진보된 국가에서는, 정치적 봉사가 시민들의 가장 높은 헌신으로 존중된다. 가장 현명하고 고상한 시민들의 가장 큰 야망은 시민 사회의 인정을 얻는 것, 정부가 위탁하는 어떤 지위에 발탁되거나 지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부들은 봉사에 대한 최고의 명예를 그들의 민간인 고용인들과 사회 고용인들에게 수여한다. 그 다음의 명예는 철학자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산업인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수여된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우수성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순수한 종교 영도자들은 영적 왕국의 대사(大使)들이 되어 다른

71:3.5 (803.5) 2. Intelligent patriotism based on wise ideals.

71:3.6 (803.6) 3. Cosmic insight interpreted in terms of planetary facts, needs, and goals.

71:3.7 (803.7) The laws of the ideal state are few in number, and they have passed out of the negativistic taboo age into the era of the positive progress of individual liberty consequent upon enhanced self-control. The exalted state not only compels its citizens to work but also entices them into profitable and uplifting utilization of the increasing leisure which results from toil liberation by the advancing machine age. Leisure must produce as well as consume.

71:3.8 (803.8) No society has progressed very far when it permits idleness or tolerates poverty. But poverty and dependence can never be eliminated if the defective and degenerate stocks are freely supported and permitted to reproduce without restraint.

71:3.9 (803.9) A moral society should aim to preserve the self-respect of its citizenry and afford every normal individual adequate opportunity for self-realization. Such a plan of social achievement would yield a cultural society of the highest order. Social evolution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al supervision which exercises a minimum of regulative control. That state is best which co-ordinates most while governing least.

71:3.10 (803.10) The ideals of statehood must be attained by evolution, by the slow growth of civic consciousness, the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and privilege of social service. At first men assume the burdens of government as a duty, following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of political spoilsmen, but later on they seek such ministry as a privilege, as the greatest honor. The status of any level of civilization is faithfully portrayed by the caliber of its citizens who volunteer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hood.

71:3.11 (803.11) In a real commonwealth the business of governing cities and provinces is conducted by experts and is managed just as are all other forms of economic and commercial associations of people.

71:3.12 (803.12) In advanced states, political service is esteemed as the highest devotion of the citizenry. The greatest ambition of the wisest and noblest of citizens is to gain civil recognition, to be elected or appointed to some position of governmental trust, and such governments confer their highest honors of recognition for service upon their civil and social servants. Honors are next bestowed in the order named upon philosophers, educators, scientists, industrialists, and militarists. Parents are duly rewarded by the excellency of their children, and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보상을 받아들인다.

purely religious leaders, being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receive their real rewards in another world.

제 4 장. 진보적인 문명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부는, 존속되는 한 반드시 진화되어야만 한다. 진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정지된 상태는 쇠퇴를 의미한다; 진화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도들만이 유지된다.

확대되는 문명의 진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포한다:

1. 개별적인 해방 보존
2. 가정 보호.
3. 경제적 안전 증진.
4. 질병 예방.
5. 의무 교육.
6. 고용 의무.
7. 여가 시간의 유익한 활용.
8. 불행한 자들을 보살핌.
9. 인종 개선.
- 10 과학과 예술의 증진.
- 11 철학—지혜—의 진흥.
- 12 조화우주 통찰력—영성(靈性)—의 증강.

그리고 문명의 기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진보는 필사자의 노력에 대한 가장 고상한 인간적 그리고 신성한 목표들의 실현—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각 개별존재의 최극 열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사회적 성취와, 하느님을 인식하는 개인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

참된 형제신분의 출현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상태에 어느 사회 계층이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실제적으로 원한다. 그러나 허약한 자들 또는 사악한 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대한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그리고 터무니없이 억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한,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직 한 가지 과정만이 실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황금률들”은, 평화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진보된 문명을 파괴시키고자 할 수도 있는 미개한 이웃들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이상(理想)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만들 수 있다.

4. PROGRESSIVE CIVILIZATION

71:4.1 (804.1) Economics, society, and government must evolve if they are to remain. Static conditions on an evolutionary world are indicative of decay; only those institutions which move forward with the evolutionary stream persist.

71:4.2 (804.2) The progressive program of an expanding civilization embraces:

- 71:4.3 (804.3) 1.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berties.
- 71:4.4 (804.4) 2. Protection of the home.
- 71:4.5 (804.5) 3. Promotion of economic security.
- 71:4.6 (804.6) 4. Prevention of disease.
- 71:4.7 (804.7) 5. Compulsory education.
- 71:4.8 (804.8) 6. Compulsory employment.
- 71:4.9 (804.9) 7. Profitable utilization of leisure.
- 71:4.10 (804.10) 8. Care of the unfortunate.
- 71:4.11 (804.11) 9. Race improvement.
- 71:4.12 (804.12) 10. Promotion of science and art.
- 71:4.13 (804.13) 11. Promotion of philosophy — wisdom.
- 71:4.14 (804.14) 12. Augmentation of cosmic insight — spirituality.

71:4.15 (804.15) And this progress in the arts of civilization leads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the highest human and divine goals of mortal endeavor — the social achievement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the personal status of God-consciousness, which becomes revealed in the supreme desire of every individual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71:4.16 (804.16) The appearance of genuine brotherhood signifies that a social order has arrived in which all men delight in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they actually desire to practice the golden rule. But such an ideal society cannot be realized when either the weak or the wicked lie in wait to take unfair and unholy advantage of those who are chiefly actuated by devotion to the service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n such a situation only one course is practical: The “golden rulers” may establish a progressive society in which they live according to their ideals while maintaining an adequate defense against their benighted fellows who might seek either to exploit their pacific predilections or to destroy their advancing civilization.

각 세대의 이상주의자들이 보다 낮은 계층의 인간성에 의해서 스스로 멸절되도록 허용한다면, 진화하는 행성 위에서 이상주의가 존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주의의 가장 큰 시험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기적인 이득과 국가적인 웅대함을 목적으로 다른 민족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운명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 당하지 않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군사적 방어태세를 진보된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는 방어 태세가 요구되며, 종교적인 이상주의만이 방어 태세가 호전성으로 바뀌는 변질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사랑과 형제신분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 5 장. 경쟁의 진화

경쟁은 사회적 진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규제되지 않는 경쟁은 폭력을 유발시킨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쟁은 산업 사회 속에서의 개별존재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일에 발휘됨으로써 전쟁을 서서히 대치시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산업들 자체의 생존을 결정하고 있다. (사회관계 앞에서는 살인과 전쟁이 서로 다른데, 살인은 사회의 초기 시대 이후로 금지되어온 반면에,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금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상적인 국가는, 개인적인 독창성에 있어서 부당함을 방지하고 개별적인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사회적 행위성을 규제한다. 국가 제도의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업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그와 동시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산업으로부터의 세금 징수를 방지하면서 국가가 기생적(寄生的)이고 압제적 상태로 바뀌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든지 초기 시대에는 문명이 진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의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협동 체제가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진보된 문명사회에 있어서, 협동은 경쟁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초기 사람은 경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초기 진화의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만, 후대의 문명은 지능적인 협동과 납득하는 형제우애관계 그리고 영적인 형제신분에 의해서 더 잘 증진된다.

사실,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경쟁은 매우 낭비적인 것이고 심히 비효율적이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 활동을 줄이고자 하는 조절이 개별존재의 기본적인 해방을 조금이라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시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제 6 장. 이익 동기

71:4.17 (804.17) Idealism can never survive on an evolving planet if the idealists in each generation permit themselves to be exterminated by the baser orders of humanity. And here is the great test of idealism: Can an advanced society maintain that military preparedness which renders it secure from all attack by its war-loving neighbors without yielding to the temptation to employ this military strength in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other peoples for purposes of selfish gain or national aggrandizement? National survival demands preparedness, and religious idealism alone can prevent the prostitution of preparedness into aggression. Only love, brotherhood, can prevent the strong from oppressing the weak.

5. THE EVOLUTION OF COMPETITION

71:5.1 (805.1) Competition is essential to social progress, but competition, unregulated, breeds violence. In current society, competition is slowly displacing war in that it determines the individual's place in industry, as well as decreeing the survival of the industries themselves. (Murder and war differ in their status before the mores, murder having been outlawed since the early days of society, while war has never yet been outlawed by mankind as a whole.)

71:5.2 (805.2) The ideal state undertakes to regulate social conduct only enough to take violence out of individual competition and to prevent unfairness in personal initiative. Here is a great problem in statehood: How can you guarantee peace and quiet in industry, pay the taxes to support state power,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taxation from handicapping industry and keep the state from becoming parasitical or tyrannical?

71:5.3 (805.3) Throughout the earlier ages of any world, competition is essential to progressive civilization. As the evolution of man progresses, co-operation becomes increasingly effective. In advanced civilizations co-operation is more efficient than competition. Early man is stimulated by competition. Early 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survival of the biologically fit, but later civilizations are the better promoted by intelligent co-operation, understanding fraternity, and spiritual brotherhood.

71:5.4 (805.4) True, competition in industry is exceedingly wasteful and highly ineffective, but no attempt to eliminate this economic lost motion should be countenanced if such adjustments entail even the slightest abrogation of any of the basic liberties of the individual.

6. THE PROFIT MOTIVE

지금-현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의 경제는,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봉사에 대한 동기에 의하여 증강될 수 없다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편협한 자아-이익에 기초한 무자비한 경쟁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까지도 결국 파괴시킨다. 배타적이고 자아-봉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교의 이상(理想)과 모순되는 것이다—예수의 가르침과는 더욱 모순된다.

경제에 있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와의 관계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에 의한 동기가 갖는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갑자기 파괴되거나 제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면 계엄령을 피울 많은 필사자들을, 일에서 열심히 하도록 유지한다.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사회적 자극제가 그 목적들에서 언제까지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경제 활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는 모두 기초적인 것이며, 진보된 사회 계층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명의 초기 단계에 두루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사람들이 이익과 관계없는 우월한 유형의 동기들을 스스로 견고하게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경제적 분투와 사회적 봉사—최상급의 지혜와 흥미진진한 형제신분 그리고 뛰어난 영적 성취라는 초월적 충동들—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제 7 장. 교육

영구적인 국가는 문화 위에 세워지고, 이상에 의해서 지배되며, 봉사에 의해서 동기를 얻는다. 교육의 목적은, 기술 습득, 지혜 추구, 자아신분의 실현, 그리고 영적 가치의 달성이 되어야만 한다.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생을 통하여 두루 교육이 계속되고, 그리고 때로는 철학이 그 시민들의 주요 추구 대상이 된다. 그러한 공화국의 시민들은, 인간관계의 의의(意義), 실체의 의미, 가치의 고결함, 삶의 목표들, 그리고 조화우주 운명의 영광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향상으로서의 지혜를 추구한다.

유란시아인 들은 하나의 새롭고도 높은 문명 사회에 대한 가시화된 꿈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이익으로-동기가 유발되는 경제적 체제를 거쳐 지나가면서 새로운 가치의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다. 교육은 너무 오랫동안 지엽주의, 군국주의, 자기 양양 그리고 성공 추구에 매달려 왔다; 결국에는 반드시 전 세계적이고, 이상적이고, 자아를-실현하고 그리고 조화우주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교육은 성직자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법률가들과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것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주

71:6.1 (805.5) Present-day profit-motivated economics is doomed unless profit motives can be augmented by service motives. Ruthless competition based on narrow-minded self-interest is ultimately destructive of even those things which it seeks to maintain. Exclusive and self-serving profit motivation is incompatible with Christian ideals — much more incompatible with the teachings of Jesus.

71:6.2 (805.6) In economics, profit motivation is to service motivation what fear is to love in religion. But the profit motive must not be suddenly destroyed or removed; it keeps many otherwise slothful mortals hard at work. It is not necessary, however, that this social energy arouser be forever selfish in its objectives.

71:6.3 (805.7) The profit motive of economic activities is altogether base and wholly unworthy of an advanced order of society; nevertheless, i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hroughout the earlier phases of civilization. Profit motivation must not be taken away from men until they have firmly possessed themselves of superior types of nonprofit motives for economic striving and social serving — the transcendent urges of superlative wisdom, intriguing brotherhood, and excellency of spiritual attainment.

7. EDUCATION

71:7.1 (806.1) The enduring state is founded on culture, dominated by ideals, and motivated by service. The purpose of education should be acquirement of skill, pursuit of wisdom, realization of selfhood, and attainment of spiritual values.

71:7.2 (806.2) In the ideal state, education continues throughout life, and philosophy sometime becomes the chief pursuit of its citizens. The citizens of such a commonwealth pursue wisdom as an enhancement of insight into the significance of human relations, the meanings of reality, the nobility of values, the goals of living, and the glories of cosmic destiny.

71:7.3 (806.3) Urantians should get a vision of a new and higher cultural society. Education will jump to new levels of value with the passing of the purely profit-motivated system of economics. Education has too long been localistic, militaristic, ego exalting, and success seeking; it must eventually become world-wide, idealistic, self-realizing, and cosmic grasping.

71:7.4 (806.4) Education recently passed from the control of the clergy to that of lawyers and businessmen. Eventually it must be given over to the philosophers and the scientists. Teachers

어저야만 한다. 선생들은 반드시 자유로운 존재, 참된 영도자들이어야만 하며, 마지막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주된 교육적 추구 분야가 될 것이다.

교육은 삶에 있어서의 본업이다; 평생 동안 계속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상승하는 차원의 필사자적 지혜를 인류가 점점 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1. 사물에 대한 지식.
2. 의미의 실현.
3. 가치들의 올바른 인식.
4. 일의 고결함—의무.
5. 목적에 대한 동기부여—도덕성.
6. 봉사를 사랑함—성격.
7. 우주적 통찰력—영적인 인식.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성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사자의 궁극적인 마음 달성,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상승할 것이다.

must be free beings, real leaders, to the end that philosophy, the search for wisdom, may become the chief educational pursuit.

71:7.5 (806.5) Education is the business of living; it must continue throughout a lifetime so that mankind may gradually experience the ascending levels of mortal wisdom, which are:

- 71:7.6 (806.6) 1. The knowledge of things.
- 71:7.7 (806.7) 2. The realization of meanings.
- 71:7.8 (806.8) 3. The appreciation of values.
- 71:7.9 (806.9) 4. The nobility of work — duty.
- 71:7.10 (806.10) 5. The motivation of goals — morality.
- 71:7.11 (806.11) 6. The love of service — character.
- 71:7.12 (806.12) 7. Cosmic insight — spiritual discernment.

71:7.13 (806.13) And then, by means of these achievements, many will ascend to the mortal ultimate of mind attainment, God-consciousness.

제 8 장. 국가의 성격

어떤 인간 정부든지 유일하게 존중되는 특성은,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 기능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국가 체제가 분할되는 것이다. 우주는, 기능과 권한에 대한 그러한 분리 계획에 따라서 관리-운영된다. 효과적인 사회 규정 또는 시민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개념을 제외하면, 한 민족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선출할 수도 있는 국가 형태가, 증강되는 자아-통제와 증가되는 사회적 봉사에 대한 목표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진보하고 있는 가에, 문제 되는 것이 거의 아니다. 한 민족의 지적 예리함, 경제적인 지혜, 사회적 영리함 그리고 도덕적 정력(精力)은 국가신분 안에 모두 신실하게 반영된다.

국가 체제의 진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진보를 수반한다:

1.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라는 삼중적 정부의 창립.
2.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들의 자유.
3.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인간 속박 철폐.
4. 세금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
5. 보편적인 교육 체제 설립—요람에서 무덤까지 확장된 학습.
6. 지방과 국가 정부 사이의 적절한 조절.

8. THE CHARACTER OF STATEHOOD

71:8.1 (806.14) The only sacred feature of any human government is the division of statehood into the three domains of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functions. The universe i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a plan of segregat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Aside from this divine concept of effective social regulation or civil government, it matters little what form of state a people may elect to have provided the citizenry is ever progressing toward the goal of augmented self-control and increased social service. The intellectual keenness, economic wisdom, social cleverness, and moral stamina of a people are all faithfully reflected in statehood.

71:8.2 (806.15) The evolution of statehood entails progress from level to level, as follows:

- 71:8.3 (806.16) 1. The creation of a threefold government of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 71:8.4 (806.17) 2. The freedom of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activities.
- 71:8.5 (807.1) 3. The abolition of all forms of slavery and human bondage.
- 71:8.6 (807.2) 4. The ability of the citizenry to control the levying of taxes.
- 71:8.7 (807.3) 5.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education — learning extended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 71:8.8 (807.4) 6. The proper adjustment between

7. 과학 육성과 질병 퇴치.

8. 성적(性的)인 평등성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산업과 정부 안에서의 여자들의 전문화된 봉사 및,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조화-협동적 기능 발휘.

9. 힘들여 일하는 노예 상태가 기계 발명과 그에 수반되는 기계시대의 승리에 의해서 제거됨.

10. 지방 언어들 of 정복—보편적 언어의 승리.

11. 전쟁의 종결—국가들로 구성된 대륙적(大陸的) 법정들에 의해서 국가적이고 종족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국제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던 것이, 대륙적 법정들에서 주기적으로 은퇴하는 수장들로부터 자동적으로 모집된 최고 행정 법정에 의해서 통솔됨. 대륙적 법정들은 강권적이고; 범세계적 법정은 조언적—도덕적—이다.

12. 지혜 추구의 전(全)세계적 유행—철학이 찬미됨. 그 행성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초기 단계들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게 될, 세계적인 종교의 진화.

이것들은 진보적인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들이며 이상적인 국가 체제의 특징이다. 유란시아는 이러한 고양된 이상(理想)들의 실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명화된 인종들이 태동되고 있다—인류는 보다 높은 진화 목표들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후원됨]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71:8.9 (807.5) 7. The fostering of science and the conquest of disease.

71:8.10 (807.6) 8. The due recognition of sex equality and the co-ordinated functioning of men and women in the home, school, and church, with specialized service of women in industry and government.

71:8.11 (807.7) 9. The elimination of toiling slavery by machine invention and the subsequent mastery of the machine age.

71:8.12 (807.8) 10. The conquest of dialects — the triumph of a universal language.

71:8.13 (807.9) 11. The ending of war — international adjudication of national and racial differences by continental courts of nations presided over by a supreme planetary tribunal automatically recruited from the periodically retiring heads of the continental courts. The continental courts are authoritative; the world court is advisory — moral.

71:8.14 (807.10) 12. The world-wide vogue of the pursuit of wisdom — the exaltation of philosophy. The evolution of a world religion, which will presage the entrance of the planet upon the earlier phases of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71:8.15 (807.11) These are the prerequisites of progressive government and the earmarks of ideal statehood. Urantia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these exalted ideals, but the civilized races have made a beginning — mankind is on the march toward higher evolutionary destinies.

71:8.16 (807.12) [Sponsor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2 편 이웃 행성의 정부

⇨ 071

유랜시아 책

07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2 편 이웃 행성의 정부

섹션

소개

- 제 1 장. 대륙 국가
- 제 2 장. 정치 구조
- 제 3 장. 가정 생활
- 제 4 장. 교육 체계
- 제 5 장. 산업 조직
- 제 6 장. 노령 보험
- 제 7 장. 세금
- 제 8 장. 특수 대학들
- 제 9 장. 보통 선거권의 계획
- 제 10 장. 범죄 다루기
- 제 11 장. 군사적 준비
- 제 12 장. 다른 나라들

소개

라나휘지의 허락에 의거하여 그리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의 허락 하에, 나는 사타니아 체계에 소속된 어느 멀지 않은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진보된 인간 종족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 중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루시퍼의 반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게 되었던 사타니아에 있는 전체 세계들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랜시아와 거의 똑같은 역사를 체험해 왔다. 바로 이 두 구체들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소개를 허락받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느 한 행성의 관련사들을 다른 행성에게 설명하는 일은 그 체계 통치자들에게 매우 진귀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랜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란과의 관계에서 이 행성의 행성영주가 불충함으로 말미암

PAPER 72

GOVERNMENT ON A NEIGHBORING PLANET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Continental Nation
- 2. Political Organization
- 3. The Home Life
- 4. The Educational System
- 5. Industrial Organization
- 6. Old-Age Insurance
- 7. Taxation
- 8. The Special Colleges
- 9. The Plan of Universal Suffrage
- 10. Dealing with Crime
- 11. Military Preparedness
- 12. The Other Nations

INTRODUCTION

72:0.1 (808.1) BY PERMISSION of Lanaforge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I am authorized to narrate something of the social, moral, and political life of the most advanced human race living on a not far-distant planet belonging to the Satania system.

72:0.2 (808.2) Of all the Satania worlds which became isolated because of participation in the Lucifer rebellion, this planet has experienced a history most like that of Urantia. The similarity of the two spheres undoubtedly explains why permission to make this extraordinary presentation was granted, for it is most unusual for the system rulers to consent to the narration on one planet of the affairs of another.

72:0.3 (808.3) This planet, like Urantia, was led astray by the disloyalty of its Planetary Prince in

아 이것 역시 타락하였다. 아담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행성도 물질아들을 받아들였으며, 이 아들 역시 불이행하여, 그 구체를 고립된 채로 놔두고 있는데, 이는 치안법관 아들이 그곳 필사 종족들에게는 증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 1 장. 대륙 국가

이 행성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크기의 독립된 한 대륙에서 하나의 매우 우월한 문명이 진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약 140,000,000명에 달한다. 그 민족은 혼합된 종족이고, 청색 인종과 황색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란시아에서 백색 인종이라고 불리는 인종보다 약간 더 많은 보라색 인종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족들은 아직 충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형제우애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현재 90세 정도이며, 그 행성에 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약 15퍼센트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이 나라의 산업 기술은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매우 큰 혜택을 누렸다. 높은 산악지대에는 일 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데, 그 지역의 아주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말미암아 수력 발전이 활용되고 있고, 대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쪽에 있는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들 국민들은 자아-지탱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접된 국가들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들은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생활필수품들의 결핍을 보충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들의 국내 교역은 활발하지만, 그들보다 덜 진보된 이웃 국가들의 전반적인 호전성 때문에 국제 무역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행성의 진화 추세를 따랐는데: 부족국가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들과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수 천 년이 걸렸다. 많은 서로 다른 계층의 정부에 의해 무조건적인 군주들이 이어졌다—실패로 끝난 연방, 공동체 연관,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끝없이 허다하게 오고 갔다. 이러한 성장은 500년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정치적 혼란기에, 그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집정관들 중의 하나가 심정을 바꾸었다. 그는 다른 통치자인 나머지 두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신의 독재자신분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퇴임하기를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륙의 통치권은 한 통치자의 손안에 들어갔다. 통합된 국가는 거의 100년 이상 강한 군주적 통치 아래에서 진보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훌륭한 해방에 대한 헌장이 진화되었다.

connection with the Lucifer rebellion. It received a Material Son shortly after Adam came to Urantia, and this Son also defaulted, leaving the sphere isolated, since a Magisterial Son has never been bestowed upon its mortal races.

1. THE CONTINENTAL NATION

72.1.1 (808.4) Notwithstanding all these planetary handicaps a very superior civilization is evolving on an isolated continent about the size of Australia. This nation numbers about 140 million. Its people are a mixed race, predominantly blue and yellow, having a slightly greater proportion of violet than the so-called white race of Urantia. These different races are not yet fully blended, but they fraternize and socialize very acceptably. The average length of life on this continent is now ninety years, fifteen per cent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people on the planet.

72.1.2 (808.5) The industrial mechanism of this nation enjoys a certain great advantage derived from the unique topography of the continent. The high mountains, on which heavy rains fall eight months in the year, are situated at the very center of the country. This natural arrangement favors the utilization of water power and greatly facilitates the irrigation of the more arid western quarter of the continent.

72.1.3 (808.6) These people are self-sustaining, that is, they can live indefinitely without importing anything from the surrounding nations. Their natural resources are replete, and by scientific techniques they have learned how to compensate for their deficiencies in the essentials of life. They enjoy a brisk domestic commerce but have little foreign trade owing to the universal hostility of their less progressive neighbors.

72.1.4 (808.7) This continental nation, in general, followed the evolutionary trend of the planet: The development from the tribal stage to the appearance of strong rulers and kings occupied thousands of years. The unconditional monarchs were succeeded by many different orders of government — abortive republics, communal states, and dictators came and went in endless profusion. This growth continued until about five hundred years ago when, during a politically fermenting period, one of the nation's powerful dictator-triumvirs had a change of heart. He volunteered to abdicate upon condition that one of the other rulers, the baser of the remaining two, also vacate his dictatorship. Thus was the sovereignty of the continent placed in the hands of one ruler. The unified state progressed under strong monarchical rule for over one hundred years,

그 후에 군주 정치로부터 대의제도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왕은 단순한 사회적 또는 국민 정서를 위한 명목상의 대표자가 되었으며, 남자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연방은 겨우 200년 전부터 실존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법들을 향하여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산업과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발전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다.

제 2 장. 정치 구조

이 대륙 국가는 중앙에 위치한 국가 수도와 함께 대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州)를 관할하는 하나의 강력한 연맹을 이루고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들과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 재판관들은 주지사들의 임명과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평생토록 재직하며, 시민 100,000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시(市) 정부가 있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 백만 명이상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 도시를 다스리는 체계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경제적이다. 시의 관리-행정을 맡는 소수 공직자들은 최고 유형의 시민들에 의하여 날카롭게 조사를 받는다.

연방 정부는 세 개의 조화-협동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 연방 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6년마다 전체 지역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 사람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75개 주 이상의 주 의원들의 요청과 각각의 주지사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선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은 재임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전직 집행자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최고 내각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입법부는 3개의 의회로 구성된다:

1. 상원(上院)은 산업, 전문직, 농업 그리고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 의해서 선출되며, 경제적인 기능에 따라서 투표한다.

2. 하원(下院)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집단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건전한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들은 두 부류의 대표자들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나 하원에 관계된 것이나에 따라서 서로

during which there evolved a masterful charter of liberty.

72:1.5 (809.1) The subsequent transition from monarchy to a representative form of government was gradual, the kings remaining as mere social or sentimental figureheads, finally disappearing when the male line of descent ran out. The present republic has now been in existence just two hundred years, during which time there has been a continuous progression toward the governmental techniques about to be narrated, the last developments in industrial and political realm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past decade.

2. POLITICAL ORGANIZATION

72:2.1 (809.2) This continental nation now h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th a centrally located national capital. The central government consists of a strong federation of one hundred comparatively free states. These states elect their governors and legislators for ten years, and none are eligible for re-election. State judges are appointed for life by the governors and confirmed by their legislatures, which consist of one representative for each one hundred thousand citizens.

72:2.2 (809.3) There are five different types of metropolitan governmen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ity, but no city is permitted to have more than one million inhabitants. On the whole, these municipal governing schemes are very simple, direct, and economical. The few offices of city administration are keenly sought by the highest types of citizens.

72:2.3 (809.4) The federal government embraces three co-ordinate division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The federal chief executive is elected every six years by universal territorial suffrage. He is not eligible for re-election except upon the petition of at least seventy-five state legislatures concurred in by the respective state governors, and then but for one term. He is advised by a supercabinet composed of all living ex-chief executives.

72:2.4 (809.5) The legislative division embraces three houses:

72:2.5 (809.6) 1. The *upper house* is elected by industrial, professional, agricultural, and other groups of workers, balloting in accordance with economic function.

72:2.6 (809.7) 2. The *lower house* is elected by certain organizations of society embracing the social, political, and philosophic groups not included in industry or the professions. All citizens in good standing participate in the election of both classes of representatives, but they are differently grouped,

다르게 분류된다.

3. 제 3 의회—고령의 정치가들—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을 포용하고 있고 우두머리 집행자와 지역(연방에 소속된) 집행자들과 대법정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상하 양원(兩院)의 지도급 관리들이 지명하는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집단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고령의 정치가 자신들의 다수결 활동에 의해서 선출된다. 회원관계는 평생이며, 빈자리가 발생할 때에는 지명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범위는 순전히 조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의 막강한 규제자이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방정부의 행정-관리적 활동들 거의 대부분은 10개의 지역별(연방 정부 산하) 관계당국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 각각은 10개의 주들의 관계적-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기관들은 전적으로 집행과 행정-관리만을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집행자들은 연방 우두머리 집행자가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 기간은 그의 임기—6년—와 똑같다. 연방정부 대법정이 10명의 이 지역별 집행자들 지명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들은 재(再)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집행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기 후임자의 연관-동료 그리고 충고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지역 대표자들이 행정-관리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주요 재판 체계—법에 의한 재판과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를 통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기능으로 분류된다:

1. 지방법원—시 또는 지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그 결정은 주(州) 고등법원에 항소될 수 있음.

2. 주(州) 대법원—그 결정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지만 연방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해방에 대한 침해는 예외임. 지역 집행자들은 어떤 사례든지 즉시 연방 대법원의 법정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연방 대법원—주(州) 법원들로부터 상정된 항소 사건들과 국가적 논쟁들에 대하여 판결하는 대법정. 이 대법정은, 어떤 주 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우두머리 집행자에 의해서 지명되고 최고 내각 과반수의 동의와 입법부의 제3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의 모든 결정들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한다.

depending on whether the election pertains to the upper or lower house.

72:2.7 (809.8) 3. The *third house* — the elder statesmen — embraces the veterans of civic service and includes many distinguished persons nominated by the chief executive, by the regional (subfederal) executives, by the chief of the supreme tribunal, and by the presiding officers of either of the other legislative houses. This group is limited to one hundred, and its members are elected by the majority action of the elder statesmen themselves. Membership is for life, and when vacancies occur, the person receiving the largest ballot among the list of nominees is thereby duly elected. The scope of this body is purely advisory, but it is a mighty regulator of public opinion and exerts a powerful influence upon all branches of the government.

72:2.8 (810.1) Very much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work is carried on by the ten regional (subfederal) authorities, each consisting of the association of ten states. These regional divisions are wholly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having neither legislative nor judicial functions. The ten regional executives are the personal appointees of the federal chief executive, and their term of office is concurrent with his — six years. The federal supreme tribunal approves the appointment of these ten regional executives, and while they may not be reappointed, the retiring executive automatically becomes the associate and adviser of his successor. Otherwise, these regional chiefs choose their own cabinet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72:2.9 (810.2) This nation is adjudicated by two major court systems — the law courts and the socioeconomic courts. The law courts function on the following three levels:

72:2.10 (810.3) 1. *Minor courts* of municipal and local jurisdiction, whose decisions may be appealed to the high state tribunals.

72:2.11 (810.4) 2. *State supreme courts*, whose decisions are final in all matters not involving the federal government or jeopardy of citizenship rights and liberties. The regional executives are empowered to bring any case at once to the bar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72:2.12 (810.5) 3. *Federal supreme court* — the high tribunal for the adjudication of national contentions and the appellate cases coming up from the state courts. This supreme tribunal consists of twelve men over forty and under seventy-five years of age who have served two or more years on some state tribunal, and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is high position by the chief executive with the majority approval of the supercabinet and the third house of the legislative assembly. All decisions of this supreme judicial body are by at least a two-

사회경제에 의한 재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기능으로 나뉜다:

1. 가정 재판소,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연관되어 있음.

2. 교육 재판소—주(州)와 지방의 학교 체계들과 연결되고 교육 행정-관리적 체계의 집행 그리고 입법 부서들과 연관된 사법기관.

3. 노동 재판소—모든 경제적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관할권에 관한 법정.

연방정부 재판소는 국가 정부의 세 번째 입법부, 고령의 정치가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과 교육 그리고 노동 최고 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다.

제 3 장. 가정 생활

이 대륙에서는,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집단적인 주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유형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클럽이나 호텔 또는 다른 유형의 집단적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 집을 위해 허락된 가장 작은 대지는 최소한 50,000 평방피트의 땅을 갖추어야만 한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땅과 재산은 최소한의 택지를 위한 비용의 10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지난 세기 동안에 크게 증진되었다. 부모로 수고하는 사람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자녀 훈련을 위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만 한다. 심지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들도 이것과 상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매 10일마다—2주마다, 그들은 5일을 한 주(週)로 계산하기 때문임—근처에 있는 센터에 나가야만 한다.

각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는 다섯이며, 그들은 충만하게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 중의 어느 한 쪽 또는 둘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재판소에 의해서 지정되는 후원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어떤 가족이든지 부모가 둘 모두 없는 고아의 후원자가 되는 상급(賞給)을 최고의 명예로 간주한다. 경쟁적인 시험이 부모들에게 시행되고, 최고 부모로 분별된-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의 가정에 고아가 맡겨진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그들의 문명을 위한 기본 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 자녀들 교육에 가장 가치 있는 분야와 성격 훈련이 그 부모들과 가정에 의

thirds vote.

72:2.13 (810.6) The socioeconomic courts function in the following three divisions:

72:2.14 (810.7) 1. *Parental courts*, associated with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divisions of the home and social system.

72:2.15 (810.8) 2. *Educational courts* — the juridical bodies connected with the state and regional school systems and associated with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mechanism.

72:2.16 (810.9) 3. *Industrial courts* — the jurisdictional tribunals vested with full authority for the settlement of all economic misunderstandings.

72:2.17 (810.10) The federal supreme court does not pass upon socioeconomic cases except upon the three-quarters vote of the third legislative branch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house of elder statesmen. Otherwise, all decisions of the parent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high courts are final.

3. THE HOME LIFE

72:3.1 (811.1) On this continent it is against the law for two families to live under the same roof. And since group dwellings have been outlawed, most of the tenement type of buildings have been demolished. But the unmarried still live in clubs, hotels, and other group dwellings. The smallest homesite permitted must provide fifty thousand square feet of land. All land and other property used for home purposes are free from taxation up to ten times the minimum homesite allotment.

72:3.2 (811.2) The home life of this people has greatly improved during the last century. Attendance of parents, both fathers and mothers, at the parental schools of child culture is compulsory. Even the agriculturists who reside in small country settlements carry on this work by correspondence, going to the near-by centers for oral instruction once in ten days — every two weeks, for they maintain a five-day week.

72:3.3 (811.3)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in each family is five, and they are under the full control of their parents or, in case of the demise of one or both, under that of the guardians designated by the parental courts. It is considered a great honor for any family to be awarded the guardianship of a full orphan. Competitive examinations are held among parents, and the orphan is awarded to the home of those displaying the best parental qualifications.

72:3.4 (811.4) These people regard the home as the basic institution of their civi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valuable part of a child's education

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해야만 한다.

모든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또는 법적인 수호자들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도덕 교육은 학교 실습실에서 방과 후 시간 동안에 선생들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종교적인 훈련은 그렇지 않고, 배타적인 부모들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종교는 가정생활에서의 하나의 집대성을 이루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순전히 종교적인 교육은 철학의 신전에서만 오직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유란시아의 교회들과 같은 배타적인 종교 기관은 이 국민들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철학 중에, 종교는 하느님을 알고자하는 분투와 동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기 동료에 대한 사랑을 현시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종교 상태의 전형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국민에게는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 모임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공 장소는 없다. 정치적으로, 유란시아인 들이 보통 말하는 것과 같은, 교회와 국가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종교와 철학은 기이하게 중첩되어 있다.

20년 전까지만 하여도 영적인 선생들(유란시아의 목사에 해당하는)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올바르게 훈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영적 충고자이며 시험관인 이 사람들은 현재 새로 창립된 영 진보 재단(財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기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아마 이 기관은 파라다이스 치안법관 아들의 도착 이후까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자기 부모들에게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5회에 걸쳐 비슷하게 시행되는 5년 동안의 공공 훈련들이 비슷한 연령의 집단들에게 부여되고, 그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의무들과 사회적 의무들이 부과된다. 투표권은 20세에 주어지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25세가 되어야 부여되며, 자녀들은 30세가 도달하면 가정을 떠나야만 한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은 나라 전체가 동일하다. 20세—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갖는 연령—이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 허락은 오직, 결혼 의사를 밝힌 지 1년 후에야, 그리고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가르치는 부모 예비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신랑과 신부들 모두에 의해 제시된 후에야 내려진다.

이혼 규정은 어느 정도 엄격하지 못한 편이지만, 가정 재판소에 의해서 발행된 이혼 허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로 1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and character training will be secured from his parents and at home, and fathers devote almost as much attention to child culture as do mothers.

72:3.5 (811.5) All sex instruction is administered in the home by parents or by legal guardians. Moral instruction is offered by teachers during the rest periods in the school shops, but not so with religious training, which is deemed to be the exclusive privilege of parents, religion being looked upon as an integral part of home life. Purely religious instruction is given publicly only in the temples of philosophy, no such exclusively religious institutions as the Urantia churches having developed among this people. In their philosophy, religion is the striving to know God and to manifest love for one's fellows through service for them, but this is not typical of the religious status of the other nations on this planet. Religion is so entirely a family matter among these people that there are no public places devoted exclusively to religious assembly. Politically, church and state, as Urantians are wont to say, are entirely separate, but there is a strange overlapping of religion and philosophy.

72:3.6 (811.6) Until twenty years ago the spiritual teachers (comparable to Urantia pastors), who visit each family periodically to examine the children to ascertain if they have been properly instructed by their parents, were under governmental supervision. These spiritual advisers and examiners are now under the direction of the newly created Foundation of Spiritual Progress, an institution supported by voluntary contributions. Possibly this institution may not further evolve until after the arrival of a Paradise Magisterial Son.

72:3.7 (811.7) Children remain legally subject to their parents until they are fifteen, when the first initiation into civic responsibility is held. Thereafter, every five years for five successive periods similar public exercises are held for such age groups at which their obligations to parents are lessened, while new civ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o the state are assumed. Suffrage is conferred at twenty, the right to marry without parental consent is not bestowed until twenty-five, and children must leave home on reaching the age of thirty.

72:3.8 (812.1) Marriage and divorce laws are uniform throughout the nation. Marriage before twenty — the age of civil enfranchisement — is not permitted. Permission to marry is only granted after one year's notice of intention, and after both bride and groom present certificates showing that they have been duly instructed in the parental schools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rried life.

72:3.9 (812.2) Divorce regulations are somewhat lax, but decrees of separation, issued by the parental courts, may not be had until one year after

없으며, 이 행성에서의 1년은 유란시아의 1년보다 훨씬 길다. 그들의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혼율은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종족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제 4 장. 교육 체계

이 나라의 교육 체계는 5세부터 18세까지 대 학교육 이전의 의무교육과 남녀 공학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것들과는 매우 다르다. 그곳에는 교실이 없고, 한 번에 한 과목만 배우며, 처음부터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이 교사 보좌관이 되어, 하급생(下級生)들을 가르친다. 학교 실습장과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요구될 때에만 책이 사용된다. 그 대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구들과 기계장치들—발명과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음—이 이들 실습소로부터 생산된다. 각 실습소 주변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참고 서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도서관이 있다. 농업과 원예술에 관한 학습 역시 각 지역 학교 근처에 있는 광대한 농장에서 전체 학기 동안 진행된다.

정신박약아들에게는 농업과 목축업만을 가르치고, 그들은 정상-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부모신분을 막기 위해 성(性)에서 격리된 특별 보호관리 거류지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75년 동안 이행되어 왔다.

각 사람들은 매 년마다 1개월 동안의 휴가를 갖는다. 대학교 이전(以前)의 학교들은 10개월로 되어있는 1년 중 9개월 동안 수행되고, 방학은 부모들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로 보낸다. 이러한 여행은 성인-교육 계획의 한 부분이며, 일생동안 계속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노후 보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다.

학습시간의 4분의 1은 운동—경쟁적인 경기(競技)들—에 소요되며, 그 지역의 시합에서 이긴 학생들은 주(州)와 지역 시합을 거쳐 기술과 용맹성을 겨루는 국가 시합에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낮은 계급의 사회기관으로부터 국가적인 명예를 얻는 시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은 웅변과 음악 시합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 관한 시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 체제는 3개의 상관관계된 분야들로 구성된 국가정부와 똑같은 형태이고, 가르치는 직원들은 제삼(第三)의 또는 조언하는 입법부 의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나라의 주요 교육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자아-공급할 수 있는 시민으로

application therefor has been recorded, and the year on this planet is considerably longer than on Urantia. Notwithstanding their easy divorce laws, the present rate of divorces is only one tenth that of the civilized races of Urantia.

4. THE EDUCATIONAL SYSTEM

72.4.1 (812.3) The educational system of this nation is compulsory and coeducational in the precollege schools that the student attends from the ages of five to eighteen. These schools are vastly different from those of Urantia. There are no classrooms, only one study is pursued at a time, and after the first three years all pupils become assistant teachers, instructing those below them. Books are used only to secure information that will assist in solv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school shops and on the school farms. Much of the furniture used on the continent and the many mechanical contrivances — this is a great age of invention and mechanization — are produced in these shops. Adjacent to each shop is a working library where the student may consult the necessary reference books.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re also taught throughout the entire educational period on the extensive farms adjoining every local school.

72.4.2 (812.4) The feeble-minded are trained only in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and are committed for life to special custodial colonies where they are segregated by sex to prevent parenthood, which is denied all subnormals. These restrictive measures have been in operation for seventy-five years; the commitment decrees are handed down by the parental courts.

72.4.3 (812.5) Everyone takes one month's vacation each year. The precollege schools are conducted for nine months out of the year of ten, the vacation being spent with parents or friends in travel. This travel is a part of the adult-education program and is continued throughout a lifetime, the funds for meeting such expenses being accumulated by the same methods as those employed in old-age insurance.

72.4.4 (812.6) One quarter of the school time is devoted to play — competitive athletics — the pupils progressing in these contests from the local, through the state and regional, and on to the national trials of skill and prowess. Likewise, the oratorical and musical contests, as well as those in science and philosophy, occupy the attention of students from the lower social divisions on up to the contests for national honors.

72.4.5 (812.7) The school government is a replica of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its three correlated branches, the teaching staff functioning as the third or advisory legislative division. The chief object of education on this continent is to make

만드는 것이다.

18세가 되어 대학 교육 체계 이전의 교육 과정을 마친 각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거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성인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책을 통하여 연구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이 계획된 기간 이전에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직접 발명하는 어떤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의 교육 체계는 개별존재를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제 5 장. 산업 조직

이 사람들의 산업 제도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자본과 노동은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절되고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이 대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 재단들의 주주가 되고 있다; 지능을 갖춘 모든 노동자는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적인 반목이 줄어들고 있으며, 선한 뜻이 신속하게 자라나고 있다. 노예 제도의 붕괴로(약 100년 전) 인하여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매해마다 2퍼센트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조절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들은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우월한 이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 또는 그 포로들의 자녀들이었다. 약 50년 전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한 마지막 남은 노예들을 추방하였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임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였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개인들 간의 또는 산업 간의 불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과 이익금 그리고 다른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으나, 대개 노동 입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반면에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은 노동 재판소로 이관된다.

노동 재판소는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노동 재판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법적인 보정(補正)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이자율.

2. 산업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

every pupil a self-supporting citizen.

72.4.6 (813.1) Every child graduating from the precollege school system at eighteen is a skilled artisan. Then begins the study of books and the pursuit of special knowledge, either in the adult schools or in the colleges. When a brilliant student completes his work ahead of schedule, he is granted an award of time and means wherewith he may execute some pet project of his own devising. The entire educational system is designed to adequately train the individual.

5. INDUSTRIAL ORGANIZATION

72.5.1 (813.2) The industrial situation among this people is far from their ideals; capital and labor still have their troubles, but both are becoming adjusted to the plan of sincere co-operation. On this unique continent the workers are increasingly becoming shareholders in all industrial concerns; every intelligent laborer is slowly becoming a small capitalist.

72.5.2 (813.3) Social antagonisms are lessening, and good will is growing apace. No grave economic problems have arisen out of the abolition of slavery (over one hundred years ago) since this adjustment was effected gradually by the liberation of two per cent each year. Those slaves who satisfactorily passed mental, moral, and physical tests were granted citizenship; many of these superior slaves were war captives or children of such captives. Some fifty years ago they deported the last of their inferior slaves, and still more recently they are addressing themselves to the task of reducing the numbers of their degenerate and vicious classes.

72.5.3 (813.4) These people have recently developed new techniques for the adjustment of industrial misunderstandings and for the correction of economic abuses which are marked improvements over their older methods of settling such problems. Violence has been outlawed as a procedure in adjusting either personal or industrial differences. Wages, profits, and other economic problems are not rigidly regulated, but they are in general controlled by the industrial legislatures, while all disputes arising out of industry are passed upon by the industrial courts.

72.5.4 (813.5) The industrial courts are only thirty years old but are functioning very satisfactorily. The most recent development provides that hereafter the industrial courts shall recognize legal compensation as falling in three divisions:

72.5.5 (813.6) 1. Legal rates of interest on invested capital.

72.5.6 (813.7) 2. Reasonable salary for skill employed in industrial operations.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아니면 그들은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인 축소를 통하여 비례적으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러한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개의 분야 즉: 자본가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에게 할당될 것이다.

매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들이 합법적인 하루 노동량을 조절하여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5일을 한 주로 하여 4일을 일하고 하루는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6시간 일하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0개월로 되어 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되어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여행하기에 적당한 기후는 일 년 중 약 8개월 동안이며, 가장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높은 추진력에 의해서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기술, 과학적인 달성, 그리고 지적인 학식으로 옮겨져 왔다. 그것은 사회적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계를 파는 자기 가게의 사무실에서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정치인을 위한 학교의 지역 분교로 서둘러 가서 공공 봉사를 위한 자격을 갖추려고 모색한다.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명예를 받아가고 있으며, 18세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들은 집과 농장에서, 어떤 공인된 산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공공 사업에서, 또는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대열에 섞여서 일한다.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기계장치를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 때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기들 힘으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자아-실현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노령 보험

이 나라는, 자선 행위의 자아-존중-파괴 유형을 노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부-보험

72:5.7 (813.8) 3. Fair and equitable wages for labor.

72:5.8 (813.9) These shall first be met in accordance with contract, or in the face of decreased earnings they shall share proportionally in transient reduction. And thereafter all earnings in excess of these fixed charges shall be regarded as dividends and shall be prorated to all three divisions: capital, skill, and labor.

72:5.9 (813.10) Every ten years the regional executives adjust and decree the lawful hours of daily gainful toil. Industry now operates on a five-day week, working four and playing one. These people labor six hours each working day and, like students, nine months in the year of ten. Vacation is usually spent in travel, and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having been so recently developed, the whole nation is travel bent. The climate favors travel about eight months in the year, and they are making the most of their opportunities.

72:5.10 (813.11) Two hundred years ago the profit motive was wholly dominant in industry, but today it is being rapidly displaced by other and higher driving forces. Competition is keen on this continent, but much of it has been transferred from industry to play, skill, scientific achievement, and intellectual attainment. It is most active in social service and governmental loyalty. Among this people public service is rapidly becoming the chief goal of ambition. The richest man on the continent works six hours a day in the office of his machine shop and then hastens over to the local branch of the school of statesmanship, where he seeks to qualify for public service.

72:5.11 (814.1) Labor is becoming more honorable on this continent, and all able-bodied citizens over eighteen work either at home and on farms, at some recognized industry, on the public works where the temporarily unemployed are absorbed, or else in the corps of compulsory laborers in the mines.

72:5.12 (814.2) These people are also beginning to foster a new form of social disgust — disgust for both idleness and unearned wealth. Slowly but certainly they are conquering their machines. Once they, too, struggled for political liberty and subsequently for economic freedom. Now are they entering upon the enjoyment of both while in addition they are beginning to appreciate their well-earned leisure, which can be devoted to increased self-realization.

6. OLD-AGE INSURANCE

72:6.1 (814.3) This nation is making a determined effort to replace the self-respect-destroying type of charity by dignified government-insurance

으로 대치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들 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을 일터에 남아있도록 승인할 주(州) 노동위원들로부터 허락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 65세에 유급 직장으로부터 은퇴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공무원들 또는 철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들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원으로부터 조성된다.

1. 연방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매 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징수함.

2. 유산—수많은 부자 시민들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3. 주(州)가 관리하는 광산의 의무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들의 생계비와 그들의 자신의 은퇴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러한 은퇴연금 자금으로 전환된다.

4.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 그 대륙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천연 자원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 신탁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과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별존재들을 위한 경비의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비록 주(州)와 지역의 보험 재단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하는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정부에 의해서 10개의 지역 관청들을 통해 관리-운영된다.

이러한 정부 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어 오고 있다. 반역과 살인 다음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공공 신뢰에서의 배반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들 중에서 도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 7 장. 세금

연방정부는 오직 노년기 연금생활의 관리-행정, 그리고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독창성을 육성하는 일에만 온정적으로 보살핀다; 주(州) 정부는 다소 개별 시민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온정적이고 사회적이다. 도시(또

guarantees of security in old age. This nation provides every child an education and every man a job; therefore can it successfully carry out such an insurance sc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firm and aged.

72:6.2 (814.4) Among this people all persons must retire from gainful pursuit at sixty-five unless they secure a permit from the state labor commissioner which will entitle them to remain at work until the age of seventy. This age limit does not apply to government servants or philosophers. The physically disabled or permanently crippled can be placed on the retired list at any age by court order countersigned by the pension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government.

72:6.3 (814.5) The funds for old-age pensions are derived from four sources:

72:6.4 (814.6) 1. One day's earnings each month are requisitio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and in this country everybody works.

72:6.5 (814.7) 2. Bequests — many wealthy citizens leave funds for this purpose.

72:6.6 (814.8) 3. The earnings of compulsory labor in the state mines. After the conscript workers support themselves and set aside their own retirement contributions, all excess profits on their labor are turned over to this pension fund.

72:6.7 (814.9) 4.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All natural wealth on the continent is held as a social trust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come therefrom is utilized for social purposes, such as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of geniuses, and expenses of especially promising individuals in the statesmanship schools. One half of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goes to the old-age pension fund.

72:6.8 (814.10) Although state and regional actuarial foundations supply many forms of protective insurance, old-age pensions are solely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e ten regional departments.

72:6.9 (814.11) These government funds have long been honestly administered. Next to treason and murder, the heaviest penalties meted out by the courts are attached to betrayal of public trust. Social and political disloyalty are now looked upon as being the most heinous of all crimes.

7. TAXATION

72:7.1 (815.1) The federal government is paternalistic only in the administration of old-age pensions and in the fostering of genius and creative originality; the state governments are slightly more concerned with the individual citizen, while the

는 그에 속한 종속부서)는, 건강, 공중위생, 건축 규정, 미화,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자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모든 산업에서 첫 번째 관심은 건강에 있다; 육체적인 행복의 어떤 위상이 산업과 공동체의 최우선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별존재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사항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도시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그들은 주(州) 정부 기금으로부터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으로부터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대한 면허 제도로 부터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도시의 범위를 실천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 운송 시설들은 시(市)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예방 그리고 보험 재단들에 의해서 후원되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75년 전부터 건축되었다.

시 정부는 보안 요원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 요원들은 주(州) 정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25세로부터 50세 사이의 미혼 남자들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州)들은 미혼 남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州)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평균적인 주 경찰 요원 숫자는 현재 50년 전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100개의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주 정부들의 세금 징수 방법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그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각의 주는 연방 대법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10개의 기본적으로 입법화된 규정들을 갖고 있으며,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일 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을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사건 안에서는 국방 위원회가 필요시에 각 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자들을 분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도 청산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으로부터 모금된다:

local governments are much more paternalistic or socialistic. The city (or some subdivision thereof) concerns itself with such matters as health, sanitation, building regulations, beautification, water supply, lighting, heating, recreation, music, and communication.

72.7.2 (815.2) In all industry first attention is paid to health; certain phases of physical well-being are regarded as industrial and community prerogatives, but individual and family health problems are matters of personal concern only. In medicine, as in all other purely personal matters, it is increasingly the plan of government to refrain from interfering.

72.7.3 (815.3) Cities have no taxing power, neither can they go in debt. They receive per capita allowances from the state treasury and must supplement such revenue from the earnings of their socialistic enterprises and by licensing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72.7.4 (815.4) The rapid-transit facilities, which make it practical greatly to extend the city boundaries, are under municipal control. The city fire departments are supported by the fire-prevention and insurance foundations, and all buildings, in city or country, are fireproof — have been for over seventy-five years.

72.7.5 (815.5) There are no municipally appointed peace officers; the police forces are maintained by the state governments. This department is recruited almost entirely from the unmarried men between twenty-five and fifty. Most of the states assess a rather heavy bachelor tax, which is remitted to all men joining the state police. In the average state the police force is now only one tenth as large as it was fifty years ago.

72.7.6 (815.6) There is little or no uniformity among the taxation schemes of the one hundred comparatively free and sovereign states as economic and other conditions vary greatly in different sections of the continent. Every state has ten basic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cannot be modified except by consent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one of these articles prevents levying a tax of more than one per cent on the value of any property in any one year, homesites, whether in city or country, being exempted.

72.7.7 (815.7)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go in debt, and a three-fourths referendum is required before any state can borrow except for purposes of war. Since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incur debt, in the event of war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is empowered to assess the states for money, as well as for men and materials, as it may be required. But no debt may run for more than twenty-five years.

72.7.8 (815.8) Income to support the federal government is derived from the following five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나라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관세가 부과되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들은 노동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관련사들의 우두머리 집행자의 제안을 받아 들인 후에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책임자는 이들 두 입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노동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2. 특허 사용료. 연방정부는 10개 지역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예술가들, 작가들, 과학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발명품과 기원적인 창조물들이 나오도록 용기를 북돋우며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중 어디에 속하든지, 그러한 모든 발명들과 창작들로부터 실현된 이익금의 절반을 취한다.

3. 상속세. 연방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1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4. 군수 장비. 정부는 군용 장비와 해군 장비를 상업 그리고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한 양의 수익금을 만든다.

5. 천연자원.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연방에 소속된 주(州)들의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전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전환된다.

연방정부의 지출금은, 국방 위원회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상원 의회에서 발의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우두머리 집행자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24년간 봉사하도록 주지사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주 의회에 의해서 매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된다. 이 기관은 매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 중의 하나를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 후부터 그는 연방 기금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지도자-통제자가 된다.

제 8 장. 특수 대학들

5세부터 18세까지 실시되는 기본적인 의무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1.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 이 학교들은 세 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국가와 지역과 주(州)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공공 직책들은 네 개의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다. 공공 신뢰의 첫 번째 분야는 주로

sources:

72:7.9 (815.9) 1. *Import duties.* All imports are subject to a tariff designed to protect the standard of living on this continent, which is far above that of any other nation on the planet. These tariffs are set by the highest industrial court after both houses of the industrial congress have ratifi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hief executive of economic affairs, who is the joint appointee of these two legislative bodies. The upper industrial house is elected by labor, the lower by capital.

72:7.10 (816.1) 2. *Royalties.* The federal government encourages invention and original creations in the ten regional laboratories, assisting all types of geniuses — artists, authors, and scientists — and protecting their patents. In return the government takes one half the profits realized from all such inventions and creations, whether pertaining to machines, books, artistry, plants, or animals.

72:7.11 (816.2) 3. *Inheritance tax.* The federal government levies a graduated inheritance tax ranging from one to fifty per cent, depending on the size of an estate as well as on other conditions.

72:7.12 (816.3) 4. *Military equipment.* The government earns a considerable sum from the leasing of military and naval equipment for commercial and recreational usages.

72:7.13 (816.4) 5. *Natural resources.* The income from natural resources, when not fully required for the specific purposes designated in the charter of federal statehood, is turned into the national treasury.

72:7.14 (816.5) Federal appropriations, except war funds assess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are originated in the upper legislative house, concurred in by the lower house, approved by the chief executive, and finally validated by the federal budget commission of one hundred. The members of this commission are nominated by the state governors and elected by the state legislatures to serve for twenty-four years, one quarter being elected every six years. Every six years this body, by a three-fourths ballot, chooses one of its number as chief, and he thereby becomes director-controller of the federal treasury.

8. THE SPECIAL COLLEGES

72:8.1 (816.6) In addition to the basic compulsory education program extending from the ages of five to eighteen, special schools are maintained as follows:

72:8.2 (816.7) 1. *Statesmanship schools.* These schools are of three classes: national, regional, and state. The public offices of the nation are grouped in four divisions. The first division of

국가 관리-행정에 소속되어 있고,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 학교를 둘 모두 마쳐야만 한다. 정치인을 위한 10개 지역 학교들 중의 어느 하나를 졸업한 개별 존재들은 두 번째 분야의 정책 기관이나 선거 기관 또는 임명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관리-행정과 주(州) 정부에서의 의무 이행 능력을 요구한다. 세 번째 분야는 주(州)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를 마쳐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야의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공직자들은 전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들은 정부의 관리-행정적 수용능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들에 의해서 배출된, 보좌관관계, 비서관 그리고 기술 책임자들의 사소한 자리들을 대표한다.

지방 재판소와 주(州)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교의 학위를 갖고 있다.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보유한다. 연방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치인을 위한 이 세 학교들의 학위를 모두 가져야만 한다.

2. 철학 학교들. 이 학교들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원(寺院)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 기능으로써 종교와 다소 연관되어 있다.

3. 과학 교육 기관들. 이 기술학교들은 교육 체계 보다는 산업체와 조화-협동하고 있으며, 15개 분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4. 전문적인 훈련 학교들. 이 특수 교육기관들은 12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막대한 전문인들을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5. 육군 그리고 해군 학교들. 국가 본부 근처와 25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들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자원하는 시민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제 9 장. 보통 선거권의 계획

비록 전체 공공 직책의 후보자들이 정치인들을 위한 주(州), 지역, 또는 국가 학교를 졸업한 자들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진보적 영도자들은 전체 국민의 투표를 위한 자기들의 계획이 심각하게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약 50년 전에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춘 개선된 투표 방식을 위한 입법화된 규정을 제정하였다: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각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모

public trust pertains principally to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all officeholders of this group must be graduates of both regional and national schools of statesmanship. Individuals may accept political, elective, or appointive office in the second division upon graduating from any one of the ten regional schools of statesmanship; their trusts concern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al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governments. Division three includes state responsibilities, and such officials are only required to have state degrees of statesmanship. The fourth and last division of officeholders are not required to hold statesmanship degrees, such offices being wholly appointive. They represent minor positions of assistantship, secretaryships, and technical trusts which are discharged by the various learned professions functioning in governmental administrative capacities.

72:8.3 (816.8) Judges of the minor and state courts hold degrees from the state schools of statesmanship. Judges of the jurisdictional tribunals of soci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matters hold degrees from the regional schools. Judges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must hold degrees from all these schools of statesmanship.

72:8.4 (817.1) 2. *Schools of philosophy.* These schools are affiliated with the temples of philosophy and are more or less associated with religion as a public function.

72:8.5 (817.2) 3. *Institutions of science.* These technical schools are co-ordinated with industry rather than with the educational system and are administered under fifteen divisions.

72:8.6 (817.3) 4.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These special institutions provide the technical training for the various learned professions, twelve in number.

72:8.7 (817.4) 5. *Military and naval schools.* Near the national headquarters and at the twenty-five coastal military centers are maintained those institutions devoted to the military training of volunteer citizens from eighteen to thirty years of age. Parental consent is required before twenty-five in order to gain entrance to these schools.

9. THE PLAN OF UNIVERSAL SUFFRAGE

72:9.1 (817.5) Although candidates for all public offices are restricted to graduates of the state, regional, or federal schools of statesmanship, the progressive leaders of this nation discovered a serious weakness in their plan of universal suffrage and about fifty years ago made constitutional provision for a modified scheme of voting which embraces the following features:

72:9.2 (817.6) 1. Every man and woman of twenty years and over has one vote. Upon attaining this

든 시민들은 반드시 두 가지 투표 집단의 회원권을 획득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능—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에 따라서 첫 번째 집단에 들어가며; 정치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모든 직원들은 경제적 투표권을 갖는 집단에 소속되고, 이 조합들은, 비경제적 관계적-연합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으로 힘이 분리된 국가 정부와 아주 흡사하게 규제된다. 그 집단들에 대한 등록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2.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였거나, 정부 업무에 있어서 비범한 지혜를 실증하여 온 개별 존재들은, 주지사 또는 지역 집행자들에 의해서 지명되고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음으로써, 최대로 매 5년 마다 추가적인 투표권이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데 그러한 특별 참정권들은 9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합 투표자의 최대 투표권은 10개이다. 과학자들, 발명가들, 선생들, 철학자들, 그리고 영도자들 역시 증강된 정치 권한이 인정되고 명예를 받는다. 이러한 진보적인 시민 특권들은, 학위가 특별 대학들에 의해서 수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州)와 지역 최고협의회들에 의하여 수여되며,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경력 표에 다른 학위들과 함께 그러한 시민 표창에 대한 표시를 첨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3. 광산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선고를 받은 모든 개별 존재들과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그러한 봉사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65세에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할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매 5년마다 기간 중에 지불한 연간 평균 세금을 반영한 다섯 계층의 투표권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들은 5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러한 인정은 다른 모든 공적과는 관계없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개를 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이러한 참정권 계획이 채택됨과 동시에, 지역적인 투표 방식은 경제적 또는 기능별 체계로 대체되었다. 모든 시민들은 현재 산업적인, 사회적인, 또는 전문적인 집단들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리하여 선거인은, 정부로부터 위탁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자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앉도록 선출하는 단결되고, 통합되고, 지능적인 집단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별 또는 집단별 투표 방식에 예외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매 6년마다 선출되는 연방 정부의 우두머리 집행자는 전국적인 투표로 결정하며, 어떤 시민도 한 표 이상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두머리 집행자 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가 경제적, 지적, 사회적 시민 집단에 의해서 시행된다. 이상적인 주(州)는 유기체적인 것이

age, all citizens must accept membership in two voting groups: They will join the first in accordance with their economic function — industrial, professional, agricultural, or trade; they will enter the second group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hilosophic, and social inclinations. All workers thus belong to some economic franchise group, and these guilds, like the noneconomic associations, are regulated much as is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its threefold division of powers. Registration in these groups cannot be changed for twelve years.

72:9.3 (817.7) 2. Upon nomination by the state governors or by the regional executives and by the mandate of the regional supreme councils, individuals who have rendered great service to society, or who have demonstrated extraordinary wisdom in government service, may have additional votes conferred upon them not oftener than every five years and not to exceed nine such superfranchises. The maximum suffrage of any multiple voter is ten. Scientists, inventors, teachers, philosophers, and spiritual leaders are also thus recognized and honored with augmented political power. These advanced civic privileges are conferred by the state and regional supreme councils much as degrees are bestowed by the special colleges, and the recipients are proud to attach the symbols of such civic recognition, along with their other degrees, to their lists of personal achievements.

72:9.4 (817.8) 3. All individuals sentenced to compulsory labor in the mines and all governmental servants supported by tax funds are, for the periods of such services, disenfranchised. This does not apply to aged persons who may be retired on pensions at sixty-five.

72:9.5 (817.9) 4. There are five brackets of suffrage reflecting the average yearly taxes paid for each half-decade period. Heavy taxpayers are permitted extra votes up to five. This grant is independent of all other recognition, but in no case can any person cast over ten ballots.

72:9.6 (818.1) 5. At the time this franchise plan was adopted, the territorial method of voting was abandoned in favor of the economic or functional system. All citizens now vote as members of industrial, social, or professional groups,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Thus the electorate consists of solidified, unified, and intelligent groups who elect only their best members to positions of governmental trust and responsibility.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scheme of functional or group suffrage: The election of a federal chief executive every six years is by nation-wide ballot, and no citizen casts over one vote.

72:9.7 (818.2) Thus, except in the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suffrage is exercised by economic, profess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groupings of

고, 자유롭고 지능적인 모든 시민 집단들이 거대한 정부 조직체 속에서 생동적이고 기능적인 기관을 대표한다.

정치인을 위한 학교들은, 모든 정신장애자, 게으른 자, 무관심한 자, 또는 죄를 지은 개별존재들에게서 투표권 박탈을 목적으로 주(州) 재판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이 열등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고 그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에는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든지 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투표는 강제 규정이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제 10 장. 범죄 다루기

범죄, 정신 이상, 퇴행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평범한 죄수들과 정신병자들은 성별(性別)로 서로 다른 농업 거류지역에 배치되며 자아-공급 보다 좀 더 남는다. 보다 심각한 상습적 범죄자들과 불치의 정신 이상자들은 재판소들에 의하여 가스실에서의 사형을 선고 받는다. 살인범 이외에도, 정부의 신뢰를 배반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들에게도 사형이 집행되며, 공의(公義)의 심판은 확실하고도 신속하다.

이 사람들은 법의 부정적 시대에서 벗어나와 긍정적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최근에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주요 범죄를 저지른다고 잠재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격리된 거류지역에서 일생을 봉사하도록 선고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려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만일 그러한 죄수들이 좀더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실증하게 되면, 그들은 가석방되거나 아니면 사면될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의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비율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범죄와 정신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다. 그곳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위한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곳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숫자의 10퍼센트에 불과한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제 11 장. 군사적 준비

연방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체험에 따라서, 국가적 국방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7개 계급의 “문명의 수호자들”로 임명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가정 재판소와 최고 교육 재판소 그리고 최고 노동 재판소에 의해 지명되고, 연방 대법원

the citizenry. The ideal state is organic, and every free and intelligent group of citizens represents a vital and functioning organ within the larger governmental organism.

72:9.8 (818.3) The schools of statesmanship have power to start proceedings in the state courts looking toward the disenfranchisement of any defective, idle, indifferent, or criminal individual. These people recognize that, when fifty per cent of a nation is inferior or defective and possesses the ballot, such a nation is doomed. They believe the dominance of mediocrity spells the downfall of any nation. Voting is compulsory, heavy fines being assessed against all who fail to cast their ballots.

10. DEALING WITH CRIME

72:10.1 (818.4) The methods of this people in dealing with crime, insanity, and degeneracy, while in some ways pleasing, will, no doubt, in others prove shocking to most Urantians. Ordinary criminals and the defectives are placed, by sexes, in different agricultural colonies and are more than self-supporting. The more serious habitual criminals and the incurably insane are sentenced to death in the lethal gas chambers by the courts. Numerous crimes aside from murder, including betrayal of governmental trust, also carry the death penalty, and the visitation of justice is sure and swift.

72:10.2 (818.5) These people are passing out of the negative into the positive era of law. Recently they have gone so far as to attempt the prevention of crime by sentencing those who are believed to be potential murderers and major criminals to life service in the detention colonies. If such convicts subsequent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become more normal, they may be either paroled or pardoned. The homicide rate on this continent is only one per cent of that among the other nations.

72:10.3 (818.6) Efforts to prevent the breeding of criminals and defectives were begun over one hundred years ago and have already yielded gratifying results. There are no prisons or hospitals for the insane. For one reason, there are only about ten per cent as many of these groups as are found on Urantia.

11. MILITARY PREPAREDNESS

72:11.1 (818.7) Graduates of the federal military schools may be commissioned as “guardians of civilization” in seven ranks, in accordance with ability and experience, by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Defense. This council consists of twenty-five members, nominated by

에 의해서 승인되며, 조화-협동된 군사적 관련자들의 참모장에 의해서 직권에 따라 통솔된다. 그러한 요원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복무한다.

그렇게 임명된 장교들이 이수해야 할 과정의 기간은 4년이고, 어떤 종류의 무역 또는 전문직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 산업학교나 과학학교 또는 전문적인 학교수업과 의 이러한 연관 없이는 군사 훈련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군사 훈련이 완결되어질 때, 각 개별존재는 자신의 4년 과정 기간에, 역시 똑같이 모두 4년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과정의 하나로서 교육의 절반동안 받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남자들의 대다수에게 기술훈련이나 또는 전문훈련을 교육의 절반으로 확보하는 동안, 자립하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군사 과정의 창조는 피해진다.

평화 시의 군 봉사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분야의 봉사에 편입된 사람들은 4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각 사람은 군사적인 전술학을 전공하는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통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음악 훈련은 그 대륙의 가장 자리에 흠어져 있는 25개의 훈련소와 중앙 군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오락들 중의 하나이다.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 나라의 군사 방어력을 제고(提高)시키는 일에 자동적으로 활용된다.

비록 이 사람들이 주변의 호전적인 민족들에 의한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강력한 전쟁 체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군사 자원들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신용도는 가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호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로 문명을 활기차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명화 되었다. 그 대륙의 주(州)들이 연합을 이룬 이래로 내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맹렬한 방어 전투를 치러야만 하였는데, 그 중에 세 번은 세계 강대국들의 강력한 동맹체와의 싸움이였다. 비록 이 나라가 호전적인 이웃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정치인들과 과학자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어용 장비들이 모두 무역과 상업 그리고 오락을 위해 사용된다. 전쟁이 선포되면 전체 국가가 동원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군인들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무리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 집행자의 내각의 일원이 된다.

the highest parent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tribunals, confirmed by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presided over ex officio by the chief of staff of co-ordinated military affairs. Such members serve until they are seventy years of age.

72:11.2 (819.1) The courses pursued by such commissioned officers are four years in length and are invariably correlated with the mastery of some trade or profession. Military training is never given without this associated industrial, scientific, or professional schooling. When military training is finished, the individual has, during his four years' course, received one half of the education imparted in any of the special schools where the courses are likewise four years in length. In this way the creation of a professional military class is avoided by providing this opportunity for a large number of men to support themselves while securing the first half of a technical or professional training.

72:11.3 (819.2) Military service during peacetime is purely voluntary, and the enlistments in all branches of the service are for four years, during which every man pursues some special line of study in addition to the mastery of military tactics. Training in music is one of the chief pursuits of the central military schools and of the twenty-five training camps distributed about the periphery of the continent. During periods of industrial slackness many thousands of unemployed are automatically utilized in upbuilding the military defenses of the continent on land and sea and in the air.

72:11.4 (819.3) Although these people maintain a powerful war establishment as a defense against invasion by the surrounding hostile peoples, it may be recorded to their credit that they have not in over one hundred years employed these military resources in an offensive war. They have become civilized to that point where they can vigorously defend civilization without yielding to the temptation to utilize their war powers in aggression. There have been no civil w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continental state, but during the last two centuries these people have been called upon to wage nine fierce defensive conflicts, three of which were against mighty confederations of world powers. Although this nation maintains adequate defense against attack by hostile neighbors, it pays far more attention to the training of statesmen, scientists, and philosophers.

72:11.5 (819.4) When at peace with the world, all mobile defense mechanisms are quite fully employed in trade, commerce, and recreation. When war is declared, the entire nation is mobilized. Throughout the period of hostilities military pay obtains in all industries, and the chiefs of all military departments become members of the chief executive's cabinet.

제 12 장. 다른 나라들

이러한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것들보다 우월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륙들(이 행성에는 11개가 있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정부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비교적 진보된 국가들에 비하여 명백하게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에, 뛰어난 이 정부는 뒤쳐진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처음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주장하는 위대한 종교 영도자 한 사람이 출현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하나의 우월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 노력해 왔을 때, 것처럼 많은 다른 이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에 이 대륙 국가가 단순히 이웃 민족들에게로 가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온 후에, 그들을 교육시키고, 문화 대사 자격으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미개한 형제들에게로 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겠는가! 물론 진보된 이 나라에 치안법관 아들이 곧 도래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에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웃에 있는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사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유란시아에 있는 정부의 진화를 증강시키고 문명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유란시아인 들의 흥미를 돌우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시된 허용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튼, 유란시아인 들은 사타니아 가족에 속한 그들의 자매 구체가, 그 어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치안법관 임무나 증여 임무에 의한 이득도 얻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그 누구도,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동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화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영을 부여주는 일은, 증여된 세계의 인간 종족들에게 크게 진전된 유익을 실현시키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는 법, 절차들, 상징들, 관습들,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행성 정부를 더욱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훨씬 잘 준비되어 있다—그 모든 것들은 법에 의거한 범세계적 평화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실제적인 영적 분투의 시대가 태동되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러한 시대는 그 행성이 빛과 생명의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서 제시됨]

12. THE OTHER NATIONS

72:12.1 (819.5) Although the society and government of this unique people are in many respects superior to those of the Urantia nations, it should be stated that on the other continents (there are eleven on this planet) the governments are decidedly inferior to the more advanced nations of Urantia.

72:12.2 (819.6) Just now this superior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ambassadorial relations with the inferior peoples, and for the first time a great religious leader has arisen who advocates the sending of missionaries to these surrounding nations. We fear they are about to make the mistake that so many others have made when they have endeavored to force a superior culture and religion upon other races. What a wonderful thing could be done on this world if this continental nation of advanced culture would only go out and bring to itself the best of the neighboring peoples and then, after educating them, send them back as emissaries of culture to their benighted brethren! Of course, if a Magisterial Son should soon come to this advanced nation, great things could quickly happen on this world.

72:12.3 (820.1) This recital of the affairs of a neighboring planet is made by special permission with the intent of advancing civilization and augmenting governmental evolution on Urantia. Much more could be narrated that would no doubt interest and intrigue Urantians, but this disclosure covers the limits of our permissive mandate.

72:12.4 (820.2) Urantians should, however, take note that their sister sphere in the Satania family has benefited by neither magisterial nor bestowal missions of the Paradise Sons. Neither are the various peoples of Urantia set off from each other by such disparity of culture as separates the continental nation from its planetary fellows.

72:12.5 (820.3)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provides the spiritu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great achievements in the interests of the human race of the bestowal world. Urantia is therefore far better prepared for the more immediate realization of a planetary government with its laws, mechanisms, symbols, conventions, and language — all of which could contribute so mightily to the establishment of world-wide peace under law and could lead to the sometime dawning of a real age of spiritual striving; and such an age is the planetary threshold to the utopian ages of light and life.

72:12.6 (820.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73 편 에덴 동산

⇨ 072

유랜시아 책

07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3 편 에덴 동산

섹션

소개

제 1 장. 노트-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

제 2 장. 동산에 대한 계획

제 3 장. 동산의 위치

제 4 장. 동산을 세움

제 5 장. 동산 가정(家庭)

제 6 장. 생명나무

제 7 장. 에덴의 숙명

PAPER 73

THE GARDEN OF EDE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2. Planning for the Garden

3. The Garden Site

4. Establishing the Garden

5. The Garden Home

6. The Tree of Life

7. The Fate of Eden

소개

칼리가스티아의 몰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유랜시아에서의 문명의 퇴보와 영적 궁핍을 야기했지만, 그 민족들의 육체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국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불만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런 문화와 도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기체적 진화는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행성 역사에 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약 40,000년 전, 임무수행 중에 있던 생명운반자들은, 순수한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보자면, 이제 유랜시아 인종들의 진보 단계가 거의 정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멜기세덱 접수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명운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생물학적 제고자인 한 쌍의 물질아들과 딸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유랜시아가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열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렸다.

이 탄원서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제출되었는데, 왜냐하면 칼리가스티아의 몰락과 예루셈에서의 일시적인 권력 공백이 유랜시아의 대부분의 관련사들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로 하여금 직접 다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십진(十進)법 소수의 즉 실험

INTRODUCTION

73:0.1 (821.1) THE cultural decadence and spiritual poverty resulting from the Caligastia downfall and consequent social confusion had little effect on the physical or biologic status of the Urantia peoples. Organic evolution proceeded apace, quite regardless of the cultural and moral setback which so swiftly followed the disaffection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And there came a time in the planetary history, almost forty thousand years ago, when the Life Carriers on duty took note that, from a purely biologic standpoint,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the Urantia races was nearing its apex. The Melchizedek receivers, concurring in this opinion, readily agreed to join the Life Carriers in a petition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sking that Urantia be inspected with a view to authorizing the dispatch of biologic uplifters, a Material Son and Daughter.

73:0.2 (821.2) This request was addressed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because they had exercised direct jurisdiction over many of Urantia's affairs ever since Caligastia's downfall and the temporary vacation of authority on Jerusem.

73:0.3 (821.3) Tabamantia, sovereign supervisor of

세계 계열의 주권적 감독자인 타바만시아가 행성을 검열하기 위하여 도착하였으며, 인종 진화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유란시아가 물질아들들에게 적합한 행성이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추천하였다. 이 검열이 있는 뒤 100년이 조금 못되었을 때, 지역체계의 물질아들과 딸인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반란과 영적 격리의 금지령 아래에서 휴면 상태로 정제되어 있던 한 행성의 혼잡한 관련사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 1 장. 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

정상적인 행성에 물질아들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대개 발명과 물질적 진보 그리고 지적 깨우침에 있어서 위대한 시대가 가까웠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아담의-이후의 시대는 대부분의 세계들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시대에 해당되었지만, 유란시아의 경우는 달랐다. 비록 유란시아가 신체적으로는 적합한 인종들로 채워졌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야만과 도덕적 부패의 수렁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반란이 있는 후 10,000년이 지나자, 영주의 관리-행정이 달성하였던 모든 진보는 실천적으로 소멸되어 버렸으며; 그 세계의 인종들에게는 이 잘못된 인도된 아들이 유란시아로 오지 않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오직 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만이 달라마시아의 전통들과 행성 영주의 문화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낯-사람들은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반란을 일으킨 요원들의 후손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의 첫 번째 영도자인 낯에서 왔는데, 낯은 한 때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달라마시아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그리고 아마돈-사람들은 반과 아마돈을 추종하였던 안돈-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아마돈 자손”이라는 이름은 종족의 명칭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면서 종교적 명칭으로서, 인종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안돈-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낯-사람은 문화적 명칭이자 동시에 종족 명칭이다; 낯-사람들 자체가 유란시아의 8번째 인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 사이에는 해묵은 적대감정이 있었다. 이 반목은 두 집단의 자손들이 어떤 공통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계속 표면으로 나타났다. 후일 에덴의 관련사들을 할 때에도 평화롭게 같이 일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다.

달라마시아의 붕괴 이후 얼마까지 않아서 낯의 추종자들은 주로 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중앙에 위치한 집단은 페르시아 만의 상류 부근인 그들의 기원적 고향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동쪽에 위치한 집단은 유프라테스 계곡의 동쪽에 있는 엘람고원으로 이주하였다. 서쪽에 위치한 집단은 지중해와 인접 지역에 있는 시리아의 북동 연안에 자리 잡았다.

the series of decimal or experimental worlds, came to inspect the planet and, after his survey of racial progress, duly recommended that Urantia be granted Material Sons. In a little less than one hundred years from the time of this inspection, Adam and Ev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of the local system, arrived and began the difficult task of attempting to untangle the confused affairs of a planet retarded by rebellion and resting under the ban of spiritual isolation.

1.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73:1.1 (821.4) On a normal planet the arrival of the Material Son would ordinarily herald the approach of a great age of invention, material progress, and intellectual enlightenment. The post-Adamic era is the great scientific age of most worlds, but not so on Urantia. Though the planet was peopled by races physically fit, the tribes languished in the depths of savagery and moral stagnation.

73:1.2 (821.5) Ten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practically all the gains of the Prince's administration had been effaced; the races of the world were little better off than if this misguided Son had never come to Urantia. Only among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was there persistence of the traditions of Dalamatia and the culture of the Planetary Prince.

73:1.3 (821.6) The *Nodites* were the descendants of the rebe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their name deriving from their first leader, Nod, onetime chairman of the Dalamatia commission on industry and trade. The *Amadonites* were the descendants of those Andonites who chose to remain loyal with Van and Amadon. "Amadonite" is more of a cultural and religious designation than a racial term; racially considered the Amadonites were essentially *Andonites*. "Nodite" is both a cultural and racial term, for the Nodites themselves constituted the eighth race of Urantia.

73:1.4 (822.1) There existed a traditional enmity between the Nodites and the Amadonites. This feud was constantly coming to the surface whenever the offspring of these two groups would try to engage in some common enterprise. Even later, in the affairs of Eden, it wa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m to work together in peace.

73:1.5 (822.2) Shortly after the destruction of Dalamatia the followers of Nod became divided into three major groups. The central group remain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ir original home near the headwaters of the Persian Gulf. The eastern group migrated to the highland regions of Elam just east of the Euphrates valley. The western group was situated on the northeastern Syrian shores of the Mediterranean

이들 낯-사람들은 산각 종족과 자유롭게 짝을 지었고 유능한 자손들을 남겼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였던 달라마시아인 들의 후손들 중 일부가 뒤틀날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들에서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합세하였다. 반 호수와 남쪽 카스피 해 지역 부근인 이곳에서 낯-사람들은 아마돈-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으며, “옛 거인들” 중에 속하였다.

아담과 이브의 도래 전까지는 이 집단들—낯-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개화된 인종들이었다.

제 2 장. 동산에 대한 계획

타바만시아의 검열이 있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 반과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세계 윤리와 문명의 본부인 고원지대에 거하면서, 인종적 향상자이며 진리의 선생이며 반역한 칼리가스티아를 대신할 귀중한 계승자인, 약속된 하느님의 아들의 출현을 전파해 왔다. 비록 당시 세계의 거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예고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과 아마돈 측근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었고 그래서 약속된 아들의 실제적인 영접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연관-동료들에게 예루셈의 물질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것은 자기가 유란시아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아담의 아들들이 항상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 83년 전에 그들의 도래를 선언하는 일과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동산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제안하였다.

고원(高原)에 있는 그들의 본부와 멀리까지 산재해 있는 61개의 정착지들로부터, 반과 아마돈은 3천 명이 넘는 자원하는 열성적인 일꾼들을 모집해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들은 이 엄숙한 집회에서 약속된—적어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아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명에 전념하였다.

반은 그 지원자들을 100개의 무리들로 나누고 각 무리마다 한 명의 지휘관을 두었으며, 각 부대마다 한 명씩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참모를 세워 연락 책임자로 삼았고, 아마돈을 자신의 동반자가 되게 하였다. 이 위원회들은 모두 열심히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고,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물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즉시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나섰다.

비록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사악함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거의 다 빼앗긴 상태에 있었지만, 동산을 준비하는 작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and in adjacent territory.

73:1.6 (822:3) These Nodites had freely mated with the Sangik races and had left behind an able progeny. And some of the descendants of the rebellious Dalamatians subsequently joined Van and his loyal followers in the lands north of Mesopotamia. Here, in the vicinity of Lake Van and the southern Caspian Sea region, the Nodites mingled and mixed with the Amadonites, and they were numbered among the “mighty men of old.”

73:1.7 (822:4) Prior to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ese groups — Nodites and Amadonites — were the most advanced and cultured races on earth.

2. PLANNING FOR THE GARDEN

73:2.1 (822:5)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prior to Tabamantia's inspection, Van and his associates, from their highland headquarters of world ethics and culture, had been preaching the advent of a promised Son of God, a racial uplifter, a teacher of truth, and the worthy successor of the traitorous Caligastia. Though the majority of the world's inhabitants of those days exhibited little or no interest in such a prediction, those who were in immediate contact with Van and Amadon took such teaching seriously and began to plan for the actual reception of the promised Son.

73:2.2 (822:6) Van told his nearest associates the story of the Material Sons on Jerusem; what he had known of them before ever he came to Urantia. He well knew that these Adamic Sons always lived in simple but charming garden homes and proposed, eighty-three years before the arrival of Adam and Eve, that they devote themselves to the proclamation of their advent and to the preparation of a garden home for their reception.

73:2.3 (822:7) From their highland headquarters and from sixty-one far-scattered settlements, Van and Amadon recruited a corps of over three thousand willing and enthusiastic workers who, in solemn assembly, dedicated themselves to this mission of preparing for the promised — at least expected — Son.

73:2.4 (822:8) Van divided his volunteers into one hundred companies with a captain over each and an associate who served on his personal staff as a liaison officer, keeping Amadon as his own associate. These commissions all began in earnest their preliminary work, and the committee on location for the Garden sallied forth in search of the ideal spot.

73:2.5 (822:9) Although Caligastia and Daligastia had been deprived of much of their power for evil, they did everything possible to frustrate and hamper the work of preparing the Garden. But their evil machinations were largely offset by the faithful

려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이 기획을 진행해나가 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의 만 명에 달하는 충성스러운 중도 창조체들의 신실한 활동에 의해서 크게 약화되었다.

제 3 장. 동산의 위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거의 3년간을 그들의 기지 밖에 나가 있었다. 세 군데의 가능한 장소들을 물색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페르시아 만의 어떤 섬이었고; 그 다음은 나중에 두 번째 동산으로 사용된 강 하구였으며; 세 번째는 지중해의 동쪽 연안에서 서쪽 방향으로 돌출된 좁고 기다란—거의 섬에 가까운—반도였다.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세 번째 지역을 채택하였다. 이 위치가 선정되고 난 후에 생명나무를 포함한 세계의 문화 기지들을 이 지중해 반도로 이전하는데 2년이 걸렸다. 반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였을 때, 한 집단을 제외한 반도의 모든 거주민들은 평화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갔다.

이 지중해 반도는 쾌적한 기후와 일정한 온도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된 기후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 때문이었고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내륙 바다 안에 있는 하나의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변에 있는 고원지대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에덴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매일 밤, 인공 관개 수로의 광범위한 망으로부터 “안개가 피어올라” 동산에 식물들을 새롭게 하였다.

이 육지의 해안선은 상당히 높이 솟아 있었고, 본토와 연결된 목 부분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겨우 43킬로 미터였다.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큰 강은 반도의 더 높은 지대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반도의 목 부분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흘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를 가로질러, 그 너머의 바다로 이르렀다. 이 강은 에덴의 반도 해안 언덕에서 기원을 가지는 네 개의 지류로부터 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에덴에서 나간” 강의 “네 개의 수원(水源)”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두 번째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강의 지류들과 혼동되었다.

동산을 둘러싼 산들에는 진귀한 돌들과 금속이 풍부했지만, 그것들은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념은 원예를 영화롭게 하고 농업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동산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마도 모든 세계에서 그런 목적을 위한 장소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며, 기후도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물들의 파라다이스라고 부를 만한 곳은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집결지로 유란시아 문명의 정수(精髓)가 모아졌다.

activities of the almost ten thousand loyal midway creatures who so tirelessly labored to advance the enterprise.

3. THE GARDEN SITE

73:3.1 (823.1) The committee on location was absent for almost three years. It reported favorably concerning three possible locations: The first was an island in the Persian Gulf; the second, the river location subsequently occupied as the second garden; the third, a long narrow peninsula — almost an island — projecting westward from the eastern shores of the Mediterranean Sea.

73:3.2 (823.2) The committee almost unanimously favored the third selection. This site was chosen, and two years were occupied in transferring the world's cultural headquarters, including the tree of life, to this Mediterranean peninsula. All but a single group of the peninsula dwellers peaceably vacated when Van and his company arrived.

73:3.3 (823.3) This Mediterranean peninsula had a salubrious climate and an equable temperature; this stabilized weather was due to the encircling mountains and to the fact that this area was virtually an island in an inland sea. While it rained copiously on the surrounding highlands, it seldom rained in Eden proper. But each night, from the extensive network of artificial irrigation channels, a “mist would go up” to refresh the vegetation of the Garden.

73:3.4 (823.4) The coast line of this land mass was considerably elevated, and the neck connecting with the mainland was only twenty-seven miles wide at the narrowest point. The great river that watered the Garden came down from the higher lands of the peninsula and flowed east through the peninsular neck to the mainland and thence across the lowlands of Mesopotamia to the sea beyond. It was fed by four tributaries which took origin in the coastal hills of the Edenic peninsula, and these are the “four heads” of the river which “went out of Eden,” and which later became confused with the branches of the rivers surrounding the second garden.

73:3.5 (823.5) The mountains surrounding the Garden abounded in precious stones and metals, though these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The dominant idea was to be the glorification of horticulture and the exaltation of agriculture.

73:3.6 (823.6) The site chosen for the Garden was probably the most beautiful spot of its kind in all the world, and the climate was then ideal. Nowhere else was there a location which could have lent itself so perfectly to becoming such a paradise of botanic expression. In this rendezvous the cream of the civilization of Urantia was for gathering.

그것이 없고 그 너머의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무지와 야만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에덴은 유란시아에서 한 점의 빛나는 장소였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아름다운 꿈이 되었고, 곧 한 편의 절묘한 시(詩)가 되었으며 완벽한 절경의 광채를 이루었다.

제 4 장. 동산을 세움

생물학적 제고자들인 물질아들이 진화의 세계에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거주지는 종종 에덴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별자리의 수도인 에덴시아의 아름답고 화려한 꽃과 나무들의 장엄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반은 이 관습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에 맞추어 반도 전체가 동산을 이루도록 꾸몄다. 그리고 목초와 동물 사육은 본토(本土)와 인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동물 중에서는 단지 새들과 여러 다른 종류의 가축들만이 그 공원 안에 거하도록 하였다. 반의 지시에 따라 에덴은 하나의 동산으로 꾸며졌고, 그것은 하나의 정원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동산 안에서는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건설되는 기간 내내, 동산의 일꾼들이 먹었던 모든 고기는 본토에서 사육된 소 떼들로부터 조달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반도의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담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단 완성되자, 실제적인 조경 작업과 보급자리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동물을 키우는 정원은 기준 성벽의 바깥쪽에 바로 이어서 좀 더 작은 성벽을 세움으로서 조성되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적의 공격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어수단으로 이용된 온갖 종류의 맹수들로 채워졌다. 이 동물원은 크게 12개로 대 구획으로 조직되었고 나뉘어 있었고, 이 집단들 사이에 담으로 만든 통로가 있어서 이것들이 동산의 12개의 대문, 강 그리고 중앙지역을 차지하는 강에 인접한 목초지로 인도했다.

동산을 준비하는 일에는 오직 자원하는 일꾼들만 고용되었고, 어떤 강제적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하였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축 떼를 돌보았으며, 인근의 믿는 자들로부터 식량의 기부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어수선한 시절에 세계의 혼잡스러운 상태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반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빨리 오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래가 연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작업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훈련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크게 낙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반의 태도는 그의 신앙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많은 이탈자들이

Without and beyond, the world lay in darkness, ignorance, and savagery. Eden was the one bright spot on Urantia; it was naturally a dream of loveliness, and it soon became a poem of exquisite and perfected landscape glory.

4. ESTABLISHING THE GARDEN

73:4.1 (823.7) When Material Sons, the biologic uplifters, begin their sojourn on an evolutionary world, their place of abode is often called the Garden of Eden becaus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loral beauty and the botanic grandeur of Edentia, the constellation capital. Van well knew of these customs and accordingly provided that the entire peninsula be given over to the Garden. Pasturage and animal husbandry were projected for the adjoining mainland. Of animal life, only the birds and the various domesticated species were to be found in the park. Van's instructions were that Eden was to be a garden, and only a garden. No animals were ever slaughtered within its precincts. All flesh eaten by the Garden workers throughout all the years of construction was brought in from the herds maintained under guard on the mainland.

73:4.2 (824.1) The first task was the building of the brick wall across the neck of the peninsula. This once completed, the real work of landscape beautification and home building could proceed unhindered.

73:4.3 (824.2) A zoological garden was created by building a smaller wall just outside the main wall; the intervening space, occupied by all manner of wild beasts, served as an additional defense against hostile attacks. This menagerie was organized in twelve grand divisions, and walled paths led between these groups to the twelve gates of the Garden, the river and its adjacent pastures occupying the central area.

73:4.4 (824.3) In the preparation of the Garden only volunteer laborers were employed; no hirelings were ever used. They cultivated the Garden and tended their herds for support; contributions of food were also received from near-by believers. And this great enterprise was carried through to completion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attendant upon the confused status of the world during these troublous times.

73:4.5 (824.4) But it was a cause for great disappointment when Van, not knowing how soon the expected Son and Daughter might come, suggest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also be trained in the work of carrying on the enterprise in case their arrival should be delayed. This seemed like an admission of lack of faith on Van's part and made considerable trouble, caused many

뒤따랐지만; 반은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탈자의 자리들을 젊은 자원자들로 대신 메워나갔다.

제 5 장. 동산 가정(家庭)

에덴 반도의 중심에는 동산의 신성한 성역인 절묘한 석조의 우주 아버지 성전(聖殿)이 있었다. 북쪽에는 행정-관리적 본부가 건립되었고; 남쪽에는 일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집들이 세워졌으며; 서쪽에는 도래할 아들의 교육 체계를 위하여 계획된 학교를 세울 땅으로 분할되어 제공되었고, 반면에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의 직접적인 후손들을 위해 계획된 주거지가 건설되었다. 에덴을 위한 고안건축 설계에는 백만 명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집과 땅이 할당되어 있었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 비록 동산은 4분의 1밖에 완결되지 않았지만, 수천 마일의 관개 수로와 12,000마일의 포장도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는 5,000채가 넘는 작은 벽돌집들이 있었으며, 나무와 식물들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공원 안에 있는 각 군(群)마다 집들의 수는 일곱 채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동산의 건축물들은 비록 단순한 형태였지만, 가장 예술적이었다. 크고 작은 도로들이 건설되었고 풍치는 절묘하였다.

동산의 정화시설은 전에 유란시아에서 시도되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었다. 에덴의 음료수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위생 규정을 엄격히 감시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유지되었다.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이 규칙들을 소홀히 한 때문이었지만, 반은 동산의 공급수 속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의 측근들에게 점차적으로 인식시켰다.

나중에 하수처리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에덴-사람들이 모든 쓰레기와 부패물들의 철저한 매장을 실천하였다. 아마돈의 검열자들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살피기 위해 매일 자기들의 구역을 순찰하였다. 서기 19세기 또는 20세기의 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유란시아인들이 질병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지 못하였다. 아담의-통치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덮개를 씌운 하수도 체계가 울타리들 아래로 흘러서 동산의 외벽 또는 낮은 벽에서 거의 1마일 가량 떨어진 에덴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 에덴에는 세계 각 지역의 식물들 대부분이 자라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과일과 곡류와 견과류들이 이미 크게 개량되어 있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채소류와 곡류의 대부분은

desertions; but Van went forward with his plan of preparedness, meantime filling the places of the deserters with younger volunteers.

5. THE GARDEN HOME

73:5.1 (824.5) At the center of the Edenic peninsula was the exquisite stone temple of the Universal Father, the sacred shrine of the Garden. To the north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to the south were built the homes for the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the west was provided the allotment of ground for the proposed schools of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expected Son, while in the "east of Eden" were built the domiciles intended for the promised Son and his immediate offspring. The architectural plans for Eden provided homes and abundant land for one million human beings.

73:5.2 (824.6)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though the Garden was only one-fourth finished, it had thousands of miles of irrigation ditches and more than twelve thousand miles of paved paths and roads. There were a trifle over five thousand brick buildings in the various sectors, and the trees and plants were almost beyond number. Seven was the largest number of houses composing any one cluster in the park. And though the structures of the Garden were simple, they were most artistic. The roads and paths were well built, and the landscaping was exquisite.

73:5.3 (824.7) The sanitary arrangements of the Garden were far in advance of anything that had been attempted theretofore on Urantia. The drinking water of Eden was kept wholesome by the strict observance of the sanitary regulations designed to conserve its purity. During these early times much trouble came about from neglect of these rules, but Van gradually impressed upon his associates the importance of allowing nothing to fall into the water supply of the Garden.

73:5.4 (825.1) Before the later establishment of a sewage-disposal system the Edenites practiced the scrupulous burial of all waste or decomposing material. Amadon's inspectors made their rounds each day in search for possible causes of sickness. Urantians did not again awaken to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human diseases until the later times of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Before the disruption of the Adamic regime a covered brick-conduit disposal system had been constructed which ran beneath the walls and emptied into the river of Eden almost a mile beyond the outer or lesser wall of the Garden.

73:5.5 (825.2) By the time of Adam's arrival most of the plants of that section of the world were growing in Eden. Already had many of the fruits, cereals, and nuts been greatly improved. Many modern

여기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식용 식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동산의 식물 중 5퍼센트 정도는 고도의 기술적 재배를 통한 것이었고, 15퍼센트는 부분적으로 재배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아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담의 생각에 따라서 완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에덴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의 반려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완전해진 관리·행정과 정상적인 통제를 갖추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의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개인적 거주지를 꾸미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수정을 하였지만, 에덴에 대한 전체 계획에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아담이 도착할 무렵까지 마지막 장식 작업이 거의 완결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미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식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에덴에 머무르던 초기 시절 동안 동산 전체는 새로운 형태를 갖추었고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풍부한 원예와 농업의 전시장은 유란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제 6 장. 생명나무

반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의 나무를 동산 성전의 중앙에 심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실은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반은 아담과 이브가 일단 유란시아에 물질적 형태로 도래한 후에는, 그들도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덴시아의 이 선물에 의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질아들들은 그 체계에 있는 수도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행성에서의 재(再)개인성구현에서 물리적 불멸을 위해 그들은 이 보조물에 의존하게 된다.

“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다양한 인간 체험을 망라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의 정의일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였고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제시되어 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칼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행정영주로 그리고 100명의 예루셈 시민들을 그의 행정-관리적 직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승인하였을 때, 에덴시아의 어떤 관목이 멜기세덱들에 의해 행성으로 보내졌으며, 그 식물이 유란시아에서 자라나서 생명나무가 되었다. 지능이 없는 이 생명 형태는 별자리 본부 구체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하보나 천체뿐만 아니라 지역 우주나 초(超)우주들의 본부 세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의 수도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vegetables and cereals were first cultivated here, but scores of varieties of food plants were subsequently lost to the world.

73:5.6 (825.3) About five per cent of the Garden was under high artificial cultivation, fifteen per cent partially cultivated, the remainder being left in a more or less natural state pending the arrival of Adam, it being thought best to finish the park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73:5.7 (825.4) And so was the Garden of Eden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promised Adam and his consort. And this Garden would have done honor to a world under perfected administration and normal control. Adam and Eve were well pleased with the general plan of Eden, though they made many changes in the furnishings of their own personal dwelling.

73:5.8 (825.5) Although the work of embellishment was hardly finished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the place was already a gem of botanic beauty; and during the early days of his sojourn in Eden the whole Garden took on new form and assumed new proportions of beauty and grandeur. Never before this time nor after has Urantia harbored such a beautiful and replete exhibition of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6. THE TREE OF LIFE

73:6.1 (825.6) In the center of the Garden temple Van planted the long-guarded tree of life, whose leaves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and whose fruit had so long sustained him on earth. Van well knew that Adam and Eve would also be dependent on this gift of Edentia for their life maintenance after they once appeared on Urantia in material form.

73:6.2 (825.7) The Material Sons on the system capitals do not require the tree of life for sustenance. Only in the planetary repersonalization are they dependent on this adjunct to physical immortality.

73:6.3 (825.8)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may be a figure of speech, a symbolic designation covering a multitude of human experiences, but the “tree of life” was not a myth; it was real and for a long time was present on Urantia. When the Most Highs of Edentia approved the commission of Caligastia as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ose of the one hundred Jerusem citizens as his administrative staff, they sent to the planet, by the Melchizedeks, a shrub of Edentia, and this plant grew to be the tree of life on Urantia. This form of nonintelligent life is native to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spheres, being also found on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local and superuniverses as well as

이 초(超)식물은 동물 실존에서의 노화(老化)-발생 요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가진 특정한 공간-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것을 먹으면 신비하게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우주의 기체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초(超)화학적 축전지와 같았다. 이러한 영양물은 유란시아에 있는 일반적인 진화적 존재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지만, 특별히 100명의 물질화된 칼리가스티아의 참모진들에게 작용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영주의 신하들에게 자신들의 생명 원형질을 기여했던 100명의 변경된 안돈-사람들에게도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 원형질을 기여한 대가로 자신들의 필사자 실존을 무기한 연장하기 위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생명 보완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

영주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나무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성전 중앙인 원형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란이 일어나자 그것은 반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중앙 핵심으로부터 그들의 임시 막사로 옮겨졌다. 이 에덴시아 나무는 나중에 고원에 있는 그들의 은거지로 다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반과 아마돈은 15만년 이상이나 그 나무의 혜택을 입고 있었다.

반과 그의 연관-동료들이 아담과 이브를 위한 동산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에덴시아의 나무를 에덴동산에 옮겨 심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또 다른 성전 중앙인 원형의 정원에서 다시 한번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이원적(二元的) 형태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과일을 먹었다.

물질아들의 계획이 빗나간 길로 들어섰을 때,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 나무 핵심을 동산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덴으로 침범해 온 놈-사람들은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느님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아무런 방어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그 과실들을 자유로이 따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 세계의 물질적 필사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그 나무의 과실이 보완물로서 작용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약효를 섭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격분하였으며, 결국에는 내란이 일어나 성전과 나무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후일에 동산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돌 벽만이 서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의 두 번째 소멸이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유란시아의 모든 육체적 존재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 모든 친족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소멸해 갔고,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물질적 죽음 이후에 펜션세계 부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우주의 상승 계획 아래

on the Havona spheres, but not on the system capitals.

73:6.4 (826.1) This superplant stored up certain space-energies which were antidotal to the age-producing elements of animal existenc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was like a superchemical storage battery, mysteriously releasing the life-extension force of the universe when eaten. This form of sustenance was wholly useless to the ordinary evolutionary beings on Urantia, but specifically it was serviceable to the one hundred materialized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and to the one hundred modified Andonites who had contributed of their life plasm to the Prince's staff, and who, in return, were made possessors of that complement of life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utiliz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for an indefinite extension of their otherwise mortal existence.

73:6.5 (826.2) During the days of the Prince's rule the tree was growing from the earth in the central and circular courtyard of the Father's temple. Upon the outbreak of the rebellion it was regrown from the central core by Van and his associates in their temporary camp. This Edentia shrub was subsequently taken to their highland retreat, where it served both Van and Amadon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73:6.6 (826.3) When Van and his associates made ready the Garden for Adam and Eve, they transplanted the Edentia tree to the Garden of Eden, where, once again, it grew in a central, circular courtyard of another temple to the Father. And Adam and Eve periodically partook of its fruit for the maintenance of their dual form of physical life.

73:6.7 (826.4) When the plans of the Material Son went astray, Adam and his family were not permitted to carry the core of the tree away from the Garden. When the Nodites invaded Eden, they were told that they would become as “gods if they partook of the fruit of the tree.” Much to their surprise they found it unguarded. They ate freely of the fruit for years, but it did nothing for them; they were all material mortals of the realm; they lacked that endowment which acted as a complement to the fruit of the tree. They became enraged at their inability to benefit from the tree of life, and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ir internal wars, the temple and the tree were both destroyed by fire; only the stone wall stood until the Garden was subsequently submerged. This was the second temple of the Father to perish.

73:6.8 (826.5) And now must all flesh on Urantia take the natural course of life and death. Adam, Eve,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together with their associates, all perished in the course of time, thus becoming subject to the ascension scheme of the local universe wherein

에 놓이게 되었다.

mansion world resurrection follows material death.

제 7 장. 에덴의 숙명

7. THE FATE OF EDEN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떠나 간 후에, 그것은 낫-사람들과 쿠티-사람들과 순트-사람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아담-사람들과 협조하기를 거부한 북쪽에 있는 낫-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반도는 아담이 동산을 떠난 뒤 거의 4천년 동안 열등한 계급의 낫-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둘러싸고 있는 화산의 격렬한 활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시칠리아 육교의 침수와 관련하여, 지중해 동쪽 지반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에덴 반도 전체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지중해 동쪽 해안선이 크게 융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연적인 창조물의 종말이기도 하였다. 그 침몰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며, 반도 전체가 완벽하게 가라앉기까지는 수백년이 걸렸다.

우리는 동산의 사라짐이 신성한 계획을 잘못 수행한 어떤 결과라거나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오류의 결과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에덴의 침몰을 자연발생적인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 인종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한 보라색 인종의 비축 인원이 축적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동산의 침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멜기세덱들은 아담 가족의 수가 5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아담에게 인종 개량을 위한 혼혈 계획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언하였다. 동산이 아담-사람들만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자들이 될 예정이었다; 이 세상의 궁핍한 인종에게 사심-없이 증여하도록 동원될 예정이었다.

멜기세덱들이 아담에게 준 지시들 속에는, 아담이 인종별로, 대륙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본부들을 세워서 그의 직계 아들과 딸들에게 맡기고, 그와 이브는 세계 전역에 생물학적 향상과 지적인 성장 그리고 도덕성의 부흥을 꾀하는 일에 충고자와 조화-협동자가 되어 이들 여러 나라들의 수도들 중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73:7.1 (826.6) After the first garden was vacated by Adam, it was occupied variously by the Nodites, Cutites, and the Suntites. It later became the dwelling place of the northern Nodites who opposed co-operation with the Adamites. The peninsula had been overrun by these lower-grade Nodites for almost four thousand years after Adam left the Garden when, in connection with the violent activity of the surrounding volcanoes and the submergence of the Sicilian land bridge to Africa, the eastern floor of the Mediterranean Sea sank, carrying down beneath the waters the whole of the Edenic peninsula. Concomitant with this vast submergence the coast line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was greatly elevated. And this was the end of the most beautiful natural creation that Urantia has ever harbored. The sinking was not sudden, several hundred years being required completely to submerge the entire peninsula.

73:7.2 (827.1) We cannot regard this disappearance of the Garden as being in any way a result of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s or as a result of the mistakes of Adam and Eve. We do not regard the submergence of Eden as anything but a natural occurrence, but it does seem to us that the sinking of the Garden was timed to occur at just about the date of the accumulation of the reserves of the violet race for undertaking the work of rehabilitating the world peoples.

73:7.3 (827.2) The Melchizedeks counseled Adam not to initiate the program of racial uplift and blending until his own family had numbered one-half million. It was never intended that the Garden should be the permanent home of the Adamites. They were to become emissaries of a new life to all the world; they were to mobilize for unselfish bestowal upon the needy races of earth.

73:7.4 (827.3) The instructions given Adam by the Melchizedeks implied that he was to establish racial, continental, and divisional headquarters to be in charge of his immediate sons and daughters, while he and Eve were to divide their time between these various world capitals as advisers and coordinators of the world-wide ministry of biologic uplift, intellectual advancement, and moral rehabilitation.

73:7.5 (827.4)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 74 편 아담과 이브

⇨ 073

유랜시아 책

07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4 편 아담과 이브

섹션

소개

제 1 장. 예루셈에서의 아담과 이브

제 2 장. 아담과 이브의 도착

제 3 장.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제 4 장. 첫 번째 격변

제 5 장. 아담의 관리-행정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가정 생활

제 7 장. 동산에서의 생활

제 8 장. 창조 설화

PAPER 74

ADAM AND EVE

SECTIONS

Introduction

1. Adam and Eve on Jerusem

2. Arrival of Adam and Eve

3. Adam and Eve Learn about the Planet

4. The First Upheaval

5. Adam's Administration

6. Home Life of Adam and Eve

7. Life in the Garden

8. The Legend of Creation

소개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을 기준으로 할 때,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동산의 꽃이 절정에 이른 한 여름이었다. 정오에, 예보도 없이, 두 명의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이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제고자 수송 임무를 맡은 예루셈 요원들을 동반하고, 자전하는 행성 표면 위로, 우주 아버지의 성전 근방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들을 재(再)물질화하는 모든 작업이,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의 구역 안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지 10일이 지나서야, 그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로 소개될 수 있는 이원적(二元的) 인간 형태로 재창조되었다. 동시에 그들의 의식도 되돌아왔다. 물질 아들과 딸들은 언제나 함께 봉사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봉사에 임한다. 그들은 한 쌍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졌으며; 홀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은 거의 없다.

INTRODUCTION

74:0.1 (828.1) ADAM AND EVE arrived on Urantia, from the year A.D. 1934, 37,848 years ago. It was in midseason when the Garden was in the height of bloom that they arrived. At high noon and unannounced, the two seraphic transports, accompanied by the Jerusem personnel intrus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the biologic uplifters to Urantia, settled slowly to the surface of the revolving planet in the vicinity of the temple of the Universal Father. All the work of rematerializing the bodies of Adam and Eve was carried on within the precincts of this newly created shrine. And from the time of their arrival ten days passed before they were re-created in dual human form for presentation as the world's new rulers. They regained consciousness simultaneously.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always serve together. It is the essence of their service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never to be separated. They are designed to work in pairs; seldom do they function alone.

제 1 장. 예루셈에서의 아담과 이브

1. ADAM AND EVE ON JERUSEM

유란시아에 온 행성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물질아들들의 선임 무리단의 대원들이었으며, 그들의 공동번호는 14,311 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세 번째 물리적 계열에 속해 있었으며 신장은 8피트보다 약간 컸다.

아담이 유란시아로 가도록 선정되었을 때, 그는 그의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의 신체시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15,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생체형태의 변경에 적용될 실험용 에너지부서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보다 오래 전에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민권 학교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뒤이은 유란시아에서의 그들의 행위성에 대한 서술함에서 참고가 되도록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모험여행 임무를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자, 물질아들들과 딸들로 구성된 선임 무리단 전체가 지원하였다. 멜기세덱 시험관은 라나휘지와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이 동의를 얻어, 후일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향상자로서 일할 아담과 이브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의 반란 중에도 미가엘에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 쌍은 시험과 교육을 위해 그 체계 주권자와 그의 내각 전체 앞으로 소환되었다. 유란시아의 세부적인 관련사들이 충만하게 제시되었고, 그들은 투쟁으로 분열된 그러한 세계의 통치자관계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위해 짜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도자들과 구원자별의 미가엘에게 충성하겠다는 공동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 정부가 그들에게 주어진 세계의 주권의 양도가 적합하다고 결정할 시기까지는, 멜기세덱 접수자들로 구성된 유란시아 무리단에게 복종하도록 정식으로 충고를 받았다.

예루셈에서 선택된 이 한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그 외 다른 곳에 100명의 자손—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진보에서의 함정들에서 벗어난 훌륭한 창조체들이었고, 그들 부모가 유란시아로 떠날 때, 우주의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임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중여를 수락하는 마지막 예식과 연관된 이별식에 참가하는 물질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하였다.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따라 그들 계층의 비(非)물질화 작업 본부까지 따라 갔고, 세라핌천사 운송자를 위한 준비에 앞서서 진행되는, 의식(意識)에서의 개인성 일탈 안에서 수면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성공을 빌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였다. 자녀들은 가족 만남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곧 사타니아 체제의 606호 행성의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 실체 안에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함께 즐겼다.

74:1.1 (828.2)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were members of th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on Jerusem, being jointly number 14,311. They belonged to the third physical series and were a little more than eight feet in height.

74:1.2 (828.3) At the time Adam was chosen to come to Urantia, he was employed, with his mate, in the trial-and-testing physical laboratories of Jerusem. For more than fifteen thousand years they had been directors of the division of experimental energy as applied to the modification of living forms. Long before this they had been teachers in the citizenship schools for new arrivals on Jerusem. And all this should be borne in mind in connection with the narration of their subsequent conduct on Urantia.

74:1.3 (828.4) When the proclamation was issued calling for volunteers for the mission of Adamic adventure on Urantia, the entire senior corps of Material Sons and Daughters volunteered. The Melchizedek examiners, with the approval of Lanaforge and the Most Highs of Edentia, finally selected the Adam and Eve who subsequently came to function as the biologic uplifters of Urantia.

74:1.4 (828.5) Adam and Eve had remained loyal to Michael during the Lucifer rebellion; nevertheless, the pair were called before the System Sovereign and his entire cabinet for examination and instruction. The details of Urantia affairs were fully presented; they were exhaustively instructed as to the plans to be pursued in accepting the responsibilities of rulership on such a strife-torn world. They were put under joint oaths of allegiance to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to Michael of Salvington. And they were duly advised to regard themselves as subject to the Urantia corps of Melchizedek receivers until that governing body should see fit to relinquish rule on the world of their assignment.

74:1.5 (829.1) This Jerusem pair left behind them on the capital of Satania and elsewhere, one hundred offspring — fifty sons and fifty daughters — magnificent creatures who had escaped the pitfalls of progression, and who were all in commission as faithful stewards of universe trust at the time of their parents' departure for Urantia. And they were all present in the beautiful temple of the Material Sons attendant upon the farewell exercises associated with the last ceremonies of the bestowal acceptance. These children accompanied their parents to the dematerialization headquarters of their order and were the last to bid them farewell and divine speed as they fell asleep in the personality lapse of consciousness which precedes the preparation for seraphic transport. The children spent some time together at the family rendezvous rejoicing that their parents were soon to become the visible heads, in reality the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의 환호와 성공을-기원하는 속에서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의무와 위험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출발하였다.

제 2 장. 아담과 이브의 도착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깊은 잠에 들어갔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 안에 깨어났을 때, 그곳에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무리들의 현존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두 존재들, 반과 그의 신실한 연관-동료인 아마돈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칼리가스티아를 밀어내는 일에 공헌하였던 이 두 영웅은 자신들의 새로운 동산 주택에서 그들을 맨 먼저 환영하였다.

에덴의 언어는 아마돈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안돈족속의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새로운 24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언어를 현저하게 개선시켰으며, 에덴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때 그것이 유란시아의 언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출발하기 전에 이 인간 언어를 이미 충만하게 터득했었기 때문에, 이 안돈의-아들은 자기 세계에 대한 고귀한 통치자가 자기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에덴 전역에 대단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고, 전령들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모여드는 소식 전달용 새들의 집결지로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쳤다: “새들을 놓아주어라; 비둘기들로 하여금 약속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라.” 신자(信者)들이 사는 수백 개의 마을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십 년간 착실하게 이 비둘기들을 사육해왔었다.

아담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가까이 있는 수천 명의 부족민들이 반과 아마돈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하여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에덴에 몰려들었다.

아담과 이브는 깨어나자마자, 공식 환영행사를 위해 사원 북쪽에 있는 큰 언덕 위로 안내되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 언덕은 커지게 되었고, 온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의 취임식을 위해 준비되었다. 유란시아 환영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의 이 아들과 딸에 대한 환영행사를 이곳에서 정오에 가졌다. 아마돈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위원회는 여섯 개의 산직 종족들 각각의 대표들; 중도자들의 임시 지휘관; 늦-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딸이자 대표자인 안난; 동산의 고안건축가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사망한 자기 부친의 계획을 집행한 노아; 그리고 두 명의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sole rulers, of planet 606 in the system of Satania.

74:1.6 (829.2) And thus did Adam and Eve leave Jerusalem amidst the acclaim and well-wishing of its citizens. They went forth to their new responsibilities adequately equipped and fully instructed concerning every duty and danger to be encountered on Urantia.

2. ARRIVAL OF ADAM AND EVE

74:2.1 (829.3) Adam and Eve fell asleep on Jerusalem, and when they awakened in the Father's temple on Urantia in the presence of the mighty throng assembled to welcome them,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wo beings of whom they had heard much, Van and his faithful associate Amadon. These two heroes of the Caligastia secession were the first to welcome them in their new garden home.

74:2.2 (829.4) The tongue of Eden was an Andonic dialect as spoken by Amadon. Van and Amadon had markedly improved this language by creating a new alphabet of twenty-four letters, and they had hoped to see it become the tongue of Urantia as the Edenic culture would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dam and Eve had fully mastered this human dialect before they departed from Jerusalem so that this son of Andon heard the exalted ruler of his world address him in his own tongue.

74:2.3 (829.5) And on that day there was great excitement and joy throughout Eden as the runners went in great haste to the rendezvous of the carrier pigeons assembled from near and far, shouting: "Let loose the birds; let them carry the word that the promised Son has come." Hundreds of believer settlements had faithfully, year after year, kept up the supply of these home-reared pigeons for just such an occasion.

74:2.4 (829.6) As the news of Adam's arrival spread abroad, thousands of the near-by tribesmen accepted the teachings of Van and Amadon, while for months and months pilgrims continued to pour into Eden to welcome Adam and Eve and to do homage to their unseen Father.

74:2.5 (829.7) Soon after their awakening, Adam and Eve were escorted to the formal reception on the great mound to the north of the temple. This natural hill had been enlarged and made ready for the installation of the world's new rulers. Here, at noon, the Urantia reception committee welcomed this Son and Daughter of the system of Satania. Amadon was chairman of this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twelve members embracing a representative of each of the six Sangik races; the acting chief of the midwayers; Annan, a loyal daughter and spokesman for the Nodites; Noah, the son of the architect and builder of the Garden

다음 행사는 선임 멜기세덱이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보호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예식이었고, 그는 유란시아에 있는 접수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우두머리였다. 물질아들과 딸은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과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받은 그들을 유란시아의 통치자로 선언하였으며, 받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활동 덕분에 150,000년 동안 지녀온 직책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었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행사가 있었던 이 날, 아담과 이브에게는 왕의 예복이 입혀졌다. 달라마시아의 기예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에덴의 시대에도 천을 짜는 실천 기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에 천사장의 선포가 있었고,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하는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심판이 선언되었으며, 사타니아의 606번 행성에 은총과 자비의 두 번째 섭리시대에서의 잠을 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영주의 섭리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행성 신(新)시대인 아담의 시대가 단순하고 웅대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 행성에 대한 권위에 있어서 전임자의 협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범세계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의 새로운 통치자들은 길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 3 장.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끝나게 되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성이 고립되어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였다. 익숙하였던 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행성-외부와 통신하는 모든 순환회로들도 통하지 않았다. 다른 예루셈 친구들은, 이러한 세계들에서 갖는 초기 체험 동안, 잘 정립된 행성영주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고 그들에게 협력할 유능한 체험 있는 참모진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세계들로 갔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반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곳에는 행성영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비록 악행으로 인하여 그의 힘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예루셈의 아들과 딸은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의논하며 그 날 밤에 보름달 아래서 동산을 거닐 때, 심각하였고 환멸감에 차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칼리가스티아의 배신으로 혼동되고 고립된 행성인 유란시아에서의 첫 날을 그렇게 보냈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밤

and executive of his deceased father's plans; and the two resident Life Carriers.

74:2.6 (830.1) The next act was the delivery of the charge of planetary custody to Adam and Eve by the senior Melchizedek, chief of the council of receivership on Urantia.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took the oath of allegiance to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and to Michael of Nebadon and were proclaimed rulers of Urantia by Van, who thereby relinquished the titular authority which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he had held by virtue of the action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74:2.7 (831.2) And Adam and Eve were invested with kingly robes on this occasion, the time of their formal induction into world rulership. Not all of the arts of Dalamatia had been lost to the world; weaving was still practiced in the days of Eden.

74:2.8 (830.3) Then was heard the archangels' proclamation, and the broadcast voice of Gabriel decreed the second judgment roll call of Urantia and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the second dispensation of grace and mercy on 606 of Satania. The dispensation of the Prince has passed; the age of Adam, the third planetary epoch, opens amidst scenes of simple grandeur; and the new rulers of Urantia start their reign under seemingly favorable conditions, notwithstanding the world-wide confusion occasioned by lack of the co-operation of their predecessor in authority on the planet.

3. ADAM AND EVE LEARN ABOUT THE PLANET

74:3.1 (830.4) And now, after their formal installation, Adam and Eve became painfully aware of their planetary isolation. Silent were the familiar broadcasts, and absent were all the circuits of extraplanetary communication. Their Jerusalem fellows had gone to worlds running along smoothly with a well-established Planetary Prince and an experienced staff ready to receive them and competent to co-operate with them during their early experience on such worlds. But on Urantia rebellion had changed everything. Here the Planetary Prince was very much present, and though shorn of most of his power to work evil, he was still able to make the task of Adam and Eve difficult and to some extent hazardous. It was a serious and disillusioned Son and Daughter of Jerusalem who walked that night through the Garden under the shining of the full moon, discussing plans for the next day.

74:3.2 (830.5) Thus ended the first day of Adam and Eve on isolated Urantia, the confused planet of the Caligastia betrayal; and they walked and talked far

인 그 날 밤늦게까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그리고 매우 외로운 밤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아담의 둘째 날은 행성 접수자들과 조언자 협의회와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다. 멜기세덱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칼리가스티아의 반역에 관한 세부적인 것과 세상의 진보에 있었던 대변동의 결과를 더욱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가슴 아픈 이야기, 세상 관련사에서 잘못된 운영에 대한 길고 상세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사회적 진화에서의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칼리가스티아 계획의 철저한 붕괴에 대한 모든 사실도 들었다. 또한 그들은 진보의 신성한 계획과 독립적으로, 행성의 향상을 성취하려는 시도에서의 어리석음의 모든 실현에 들었다. 그리고 슬프지만 깨우치게 한 날—유란시아에서의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다.

셋째 날은 동산을 검열하면서 보냈다. 커다란 여객용 새—판도르—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가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광대하게 뻗어있는 동산을 내려다보았다. 검열을 단행한 이 날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룩하는데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대한 연회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셋째 날에도 역시 밤늦게까지 동산을 거닐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막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넷째 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취임식 날 올라갔던 언덕 위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재건할 그들의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방법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죄와 반역의 결과로 추락된 낮은 차원으로부터 유란시아의 사회적 문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 날은 하나의 위대한 날이었으며, 세상 관련자들의 새로운 관리-행정에서 일할 남자와 여자들을 선정해서 협의회를 만든 기념으로 열린 향연과 함께 끝났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 집단에 있었다는 것과, 달라마시아의 시대 이후로 지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여자인 이브가 남자와 함께 세상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된 이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혁신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서의 넷째 날이 막을 내렸다.

다섯째 날은 임시 정부의 조직에 바빴고, 그것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게 될 날까지 기능하는 관리-행정기구 이었다.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 검열하는 것으로 보냈다. 에덴의 동쪽 벽을 따라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의를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활들을 구경하였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거주하는 하나의 세계가 처한 혼란된 상태에서부터 질서를 유도해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더 깊은 남

into the night, their first night on earth — and it was so lonely.

74:3.3 (830.6) Adam's second day on earth was spent in session with the planetary receivers and the advisory council. From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Adam and Eve learned more about the detail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and the result of that upheaval upon the world's progress. And it was, on the whole, a disheartening story, this long recital of the mismanagement of world affairs. They learned all the facts regarding the utter collapse of the Caligastia scheme for accelerating the process of social evolution. They also arrived at a full realization of the folly of attempting to achieve planetary advancement independently of the divine plan of progression. And thus ended a sad but enlightening day — their second on Urantia.

74:3.4 (831.1) The third day was devoted to an inspection of the Garden. From the large passenger birds — the fandors — Adam and Eve looked down upon the vast stretches of the Garden while being carried through the air over this, the most beautiful spot on earth. This day of inspection ended with an enormous banquet in honor of all who had labored to create this garden of Edenic beauty and grandeur. And again, late into the night of their third day, the Son and his mate walked in the Garden and talked about the immensity of their problems.

74:3.5 (831.2) On the fourth day Adam and Eve addressed the Garden assembly. From the inaugural mount they spoke to the people concerning their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world and outlined the methods whereby they would seek to redeem the social culture of Urantia from the low levels to which it had fallen as a result of sin and rebellion. This was a great day, and it closed with a feast for the council of men and women who had been selected to assume responsibilities in the new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Take note! women as well as men were in this group, and that was the first time such a thing had occurred on earth since the days of Dalamatia. It was an astounding innovation to behold Eve, a woman, sharing the honors and responsibilities of world affairs with a man. And thus ended the fourth day on earth.

74:3.6 (831.3) The fifth day was occupied with the organization of the temporary government, the administration which was to function until the Melchizedek receivers should leave Urantia.

74:3.7 (831.4) The sixth day was devoted to an inspection of the numerous types of men and animals. Along the walls eastward in Eden, Adam and Eve were escorted all day, viewing the animal life of the planet and arriving at a better understanding as to what must be done to bring order out of the confusion of a world inhabited by

득을 하게 되었다.

그 날 아담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아담에게 보여준 수천 종류의 동물들의 자연본성과 기능에 대해 아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납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모두들 크게 놀랐다. 그는 어느 동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자연본성과 습성을 지적하였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창조체들의 기원과 자연본성 그리고 기능을 묘사할 수 있는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었다. 이 검열 여행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새 통치자가 모든 사타니아에서 가장 숙련된 해부학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브 역시 같은 전문가였다. 아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들의 무리를 설명함으로써 그의 연관 동물들은 놀라게 하였다.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문 지 여섯째 날이 끝날 때,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유란시아 여행의 처음 몇새 동안은 매우 바쁘게 지냈으며, 그들은 모든 활동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게 될 이 날을 큰 즐거움을 갖고 고대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담이 유란시아 동물의 삶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한 바로 전 날의 체험은, 그의 훌륭한 취임식 연설 그리고 그의 멋진 자태와 함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지성을 너무나 압도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들로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없던려서 그들을 하느님들로서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4 장. 첫 번째 격변

여섯째 날 밤, 아담과 이브가 잠을 자는 동안에, 에덴의 중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성전 부근에서 이상한 관련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에서 수백 명의 열광하고 흥분한 남자와 여자들이, 자기들의 영도자들이 열광적으로 탄원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동안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의를 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새로운 통치자의 형제우애에서의 소박함과 민주적인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사를 맡아 볼 새롭게 구성된 임시 행정-관리자들은,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너무나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神性)이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으로, 아담과 이브가 실체 안에서, 하느님이 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어떤 지위에 아주 가깝다고 결정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 지 몇새 동안에 보여준 놀라운 일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such a variety of living creatures.

74:3.8 (831.5) It greatly surprised those who accompanied Adam on this trip to observe how fully he understood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imals shown him. The instant he glanced at an animal, he would indicate its nature and behavior. Adam could give names descrip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 of all material creatures on sight. Those who conducted him on this tour of inspection did not know that the world's new ruler was one of the most expert anatomists of all Satania; and Eve was equally proficient. Adam amazed his associates by describing hosts of living things too small to be seen by human eyes.

74:3.9 (831.6) When the sixth day of their sojourn on earth was over, Adam and Eve rested for the first time in their new home in “the east of Eden.” The first six days of the Urantia adventure had been very busy, and they looked forward with great pleasure to an entire day of freedom from all activities.

74:3.10 (831.7) But circumstances dictated otherwise. The experience of the day just past in which Adam had so intelligently and so exhaustively discussed the animal life of Urantia, together with his masterly inaugural address and his charming manner, had so won the hearts and overcome the intellects of the Garden dwellers that they were not only wholeheartedly disposed to accept the newly arrived Son and Daughter of Jerusem as rulers, but the majority were about ready to fall down and worship them as gods.

4. THE FIRST UPHEAVAL

74:4.1 (832.1) That night, the night following the sixth day, while Adam and Eve slumbered, strange things were transpiring in the vicinity of the Father's temple in the central sector of Eden. There, under the rays of the mellow moon, hundreds of enthusiastic and excited men and women listened for hours to the impassioned pleas of their leaders. They meant well, but they simply could not understand the simplicity of the fraternal and democratic manner of their new rulers. And long before daybreak the new and temporary administrators of world affairs reached a virtually unanimous conclusion that Adam and his mate were altogether too modest and unassuming. They decided that Divinity had descended to earth in bodily form, that Adam and Eve were in reality gods or else so near such an estate as to be worthy of reverent worship.

74:4.2 (832.2) The amazing events of the first six days of Adam and Eve on earth were entirely too much for the unprepared minds of even the world's best men; their heads were in a whirl; they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그들은 그 고귀한 한 쌍을 그날 정오에 아버지의 성전에 모셔다 놓고 그들에게 경배의 절을 하고 복종의 서약을 할 것에 대한 제의에 한결같이 동의하였다. 동산의 거주자들은 그 모든 일에 실제로 진지하게 대하였다.

반은 항의하였다,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와 뒤에 남아 철야를 보내는, 명예로운 수호자 책임을 맡았기에 자리에 없었다. 한편 반의 항의는 일축되었다. 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티를 내지 않아, 그도 하느님 자신에 못지않다고 하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며, 아담의 도래를 위한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을 들었다. 그리고 열광한 에덴-사람들이 찬미를 위하여 반을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려 하자, 반은 군중들 틈에서 벗어나서, 중도자(中途者)들에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영도자를 황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온지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선의(善意)를 갖기는 하였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의 제안한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때, 여객용 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도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환영식을 개최했던 언덕 위로 올라가 신성한 아들관계에 대한 규칙들에 관하여 군중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경배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다. 아담은 자신이 어떤 명예나 모든 존중을 받아들이겠지만, 경배만큼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그 날은 중대한 날이었으며, 정오가 되기 전, 세라핌천사 메신저들이 그 세계의 통치자 취임에 대한 예루셈의 허가서를 갖고 도착하였을 때, 아담과 이브는 군중들로부터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 너희는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현존에 대해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이 행위를 오직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진실의 서약으로 삼아라.” 그들은 모두 아담이 지도한대로 하였다. 물질아들과 딸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었드려 절하는 동안 단 둘이 언덕 위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되었다. 에덴에서는 7일째 되는 날은 언제나 정오에 성전에서의 집회에 열심히 모였고, 그 날을 자아-수양의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적 수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인 경배를 드렸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 즐겼다. 에덴에서 이것이 법으로 지켜진 적은 없었지만 아담의-관리-행정이

were swept along with the proposal to bring the noble pair up to the Father's temple at high noon in order that everyone might bow down in respectful worship and prostrate themselves in humble submission. And the Garden dwellers were really sincere in all of this.

74:4.3 (832.3) Van protested. Amadon was absent, being in charge of the guard of honor which had remained behind with Adam and Eve overnight. But Van's protest was swept aside. He was told that he was likewise too modest, too unassuming; that he was not far from a god himself, else how had he lived so long on earth, and how had he brought about such a great event as the advent of Adam? And as the excited Edenites were about to seize him and carry him up to the mount for adoration, Van made his way out through the throng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midwayers, sent their leader in great haste to Adam.

74:4.4 (832.4) It was near the dawn of their seventh day on earth that Adam and Eve heard the startling news of the proposal of these well-meaning but misguided mortals; and then, even while the passenger birds were swiftly winging to bring them to the temple, the midwayers, being able to do such things, transported Adam and Eve to the Father's temple. It was early on the morning of this seventh day and from the mount of their so recent reception that Adam held forth in explanation of the orders of divine sonship and made clear to these earth minds that only the Father and those whom he designates may be worshiped. Adam made it plain that he would accept any honor and receive all respect, but worship never!

74:4.5 (832.5) It was a momentous day, and just before noon, abou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eraphic messenger bearing the Jerusalem acknowledgment of the installation of the world's rulers, Adam and Eve, moving apart from the throng, pointed to the Father's temple and said: “Go you now to the material emblem of the Father's invisible presence and bow down in worship of him who made us all and who keeps us living. And let this act be the sincere pledge that you never will again be tempted to worship anyone but God.” They all did as Adam directed.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stood alone on the mount with bowed heads while the people prostrated themselves about the temple.

74:4.6 (832.6)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Sabbath-day tradition. Always in Eden the seventh day was devoted to the noontide assembly at the temple; long it was the custom to devote this day to self-culture. The forenoon was devoted to physical improvement, the noontime to spiritual worship, the afternoon to mind culture, while the evening was spent in social rejoicing. This was never the

지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관습으로 지켜졌다.

law in Eden, but it was the custom as long as the Adamic administration held sway on earth.

제 5 장. 아담의 관리-행정

아담이 도착한 후 거의 7년 동안 멜기세덱 접수자들이 의무 수행을 위하여 남아있었지만, 때가 이르자 그들은 세상 관련사의 관리-행정을 아담에게 맡기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그 접수자들의 송별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저녁에는 개별 멜기세덱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신들의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조언과 최고의 희망사항들을 전해주었다. 아담은 그의 충고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지상에서 머물러 줄 것을 이미 여러 번 부탁하였지만, 그 부탁들은 항상 부인되었다. 이제 이 물질아들이 세상 관련사들의 수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타니아의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은 한 밤중에 14명의 존재들을 데리고 예루셈을 향해 그 행성을 떠났고, 반과 아마돈의 전환도 12명의 멜기세덱들의 출발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

유란시아는 한동안 모든 것이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은 아담이 결국에는 에덴의 문화를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멜기세덱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는 외부 세계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으로 제조업 기술을 육성시키기 시작하였다. 에덴이 몰락했을 당시에는, 백 개가 넘는 원시적인 제조업 공장들이 거기에서 작동 중이었고, 인근에 있는 부족들과의 광범위한 무역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문명의 진화를 위해 그들의 전문적인 기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준비로,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으나; 이제 그들은 미개인, 야만인, 그리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의 세계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 인구들 중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동산에 모인, 여기저기에 있는, 오직 몇 개의 집단들만이 아담의-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영웅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매 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을 하나의 체계로 통제할 수 있게 해 놓았고 이 모든 집단들을 에덴의 연방체제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동산 밖의 세계로 나가서 이 생각을 이방 부족들에게도 적용시키려 하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아담의 연관-동료들이 동산 외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직접적이고 잘 계획된 저항에 곧 부딪혔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지위는 박탈되었지만, 아직 이 행성으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상에 남아 있었으며,

5. ADAM'S ADMINISTRATION

74:5.1 (833.1) For almost seven years after Adam's arrival the Melchizedek receivers remained on duty, but the time finally came when they turned the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over to Adam and returned to Jerusalem.

74:5.2 (833.2) The farewell of the receivers occupied the whole of a day, and during the evening the individual Melchizedeks gave Adam and Eve their parting advice and best wishes. Adam had several times requested his advisers to remain on earth with him, but always were these petitions denied. The time had come when the Material Sons must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world affairs. And so, at midnight, the seraphic transports of Satania left the planet with fourteen beings for Jerusalem, the translation of Van and Amadon occurring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ure of the twelve Melchizedeks.

74:5.3 (833.3) All went fairly well for a time on Urantia, and it appeared that Adam would, eventually, be able to develop some plan for promoting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Edenic civilization. Pursuant to the advice of the Melchizedeks, he began to foster the arts of manufacture with the idea of developing trade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When Eden was disrupted, there were over one hundred primitive manufacturing plants in operation, and extensive trade relations with the near-by tribes had been established.

74:5.4 (833.4) For ages Adam and Eve had been instructed in the technique of improving a world in readiness for their specialized contributions to the advancement of evolutionary civilization; but now they were face to face with pressing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order in a world of savages, barbarians, and semicivilized human beings. Aside from the cream of the earth's population, assembled in the Garden, only a few groups, here and there, were at all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Adamic culture.

74:5.5 (833.5) Adam made a heroic and determined effort to establish a world government, but he met with stubborn resistance at every turn. Adam had already put in operation a system of group control throughout Eden and had federated all of these companies into the Edenic league. But trouble, serious trouble, ensued when he went outside the Garden and sought to apply these ideas to the outlying tribes. The moment Adam's associates began to work outside the Garden, they met the direct and well-planned resistance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The fallen Prince had been deposed as world ruler, but he had not been

인간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은 부족들에게 칼리가스티아를 대항하도록 경고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의 적이 필사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척 어려웠다.

심지어는 에덴족속들 중에서도 칼리가스티아의 방자한 개인적 해방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담에게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존재들이었다; 아담이 짜놓은 정연한 진보와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최상의 계획을 항상 뒤엎어 버렸다. 마침내 그는 즉각적인 사회화를 위한 계획을 철회시킬 수밖에 없었다; 반이 행한 조직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에덴-사람들을 10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각 집단마다 지휘관을 두었으며 10명의 집단마다 보좌관을 두었다.

아담과 이브는 군주정치 대신하는 대의정치를 세우려고 왔지만, 그러나 지구 온 땅에서 그런 이름에 어울릴만한 정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분간 아담은 대의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에덴의 영토가 붕괴하기 전에, 그는 바깥쪽에 강력한 개별존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의 100개에 이르는 무역 및 사회 중심들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 중심들의 대부분은 반과 아마돈에 의해 이전에 조직된 적이 있었다.

한 부족으로부터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파견하는 일이 아담의 시대에 생겨났다. 이것은 정부제도의 진화에 있어서 큰 발전이었다.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아담의-가족의 주거지는 5평방 마일을 약간 넘었다. 이 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구역은 30만 명 이상의 순수 혈통을 지닌 자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들 중에서 오직 첫 번째 단계의 건물들만이 건축되어 있었다. 아담의-가족의 수요가 이러한 초기 계획에 도달하기 전에 에덴의 계획 전체가 파괴되었고 동산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아담아들은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첫 번째 보라색 인종이었고 그 밑으로 누이동생이 태어났으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이브선이 태어났다. 멜기세덱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브는 다섯 명—세 아들과 두 딸—의 자녀를 두었다. 두 딸은 쌍둥이였다. 이브는 불이행을 범하기 전까지 모두 63명의 자녀들을 나았는데, 32명의 딸과 31명의 아들을 두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들은 4대를 이루었으며, 순수 혈통의 자손들 숫자는 1,676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뒤에도 42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고, 그 외에 이 세상의 필사자 혈통과 결합하여 2명의 자

removed from the planet. He was still present on earth and able, at least to some extent, to resist all of Adam's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of human society. Adam tried to warn the races against Caligastia, but the task was made very difficult because his archenemy was invisible to the eyes of mortals.

74:5.6 (833.6) Even among the Edenites there were those confused minds that leaned toward the Caligastia teaching of unbridled personal liberty; and they caused Adam no end of trouble; always were they upsetting the best-laid plans for orderly progression and substantial development. He was finally compelled to withdraw his program for immediate socialization; he fell back on Van's method of organization, dividing the Edenites into companies of one hundred with captains over each and with lieutenants in charge of groups of ten.

74:5.7 (834.1) Adam and Eve had come to institute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e place of monarchical, but they found no government worthy of the nam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or the time being Adam abandoned all effort to establish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before the collapse of the Edenic regime he succeeded in establishing almost one hundred outlying trade and social centers where strong individuals ruled in his name. Most of these centers had been organized aforetime by Van and Amadon.

74:5.8 (834.2) The sending of ambassadors from one tribe to another dates from the times of Adam. This was a great forward step in the evolution of government.

6. HOME LIFE OF ADAM AND EVE

74:6.1 (834.3) The Adamic family grounds embraced a little over five square miles. Immediately surrounding this homesite, provision had been made for the care of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of the pure-line offspring. But only the first unit of the projected buildings was ever constructed. Before the size of the Adamic family outgrew these early provisions, the whole Edenic plan had been disrupted and the Garden vacated.

74:6.2 (834.4) Adamson was the first-born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being followed by his sister and Eveson, the second son of Adam and Eve. Eve was the mother of five children before the Melchizedeks left —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The next two were twins. She bore sixty-three children, thirty-two daughters and thirty-one sons, before the default. When Adam and Eve left the Garden, their family consisted of four generations numbering 1,647 pure-line descendants. They had forty-two children after leaving the Garden besides the two offspring of

식을 낳았다. 그리고 낯-사람 그리고 진화적 인종들에게 이어지는 아담의-가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담의-자녀들은 생후 1년이 지나 엄마의 젖을 뗀 후에도, 동물로부터 나온 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브는 젖을 뗀 후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은 밀크나 여러 가지 과일 주스들을 먹었는데, 이 음식들의 에너지와 화학작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브는 아이들의 치아가 모두 나올 때까지 그 음식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었다.

에덴에서 아담의-구역 바로 바깥에서는 불로 익혀먹기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지만, 아담의 식구들은 불로 익혀먹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일, 견과류와 곡류들—을 충분히 익은 것들로 준비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직후에 먹었다. 아담과 이브는 또한 생명나무의 사명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정한 공간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흡입했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는 미광(微光)을 발산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 연관-동료들의 관습에 따라서 반드시 옷을 입고 있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입지 않지만, 황혼 무렵에는 밤 외투를 입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나타낼 때 머리 뒤로 둥그렇게 둘러싼 후광(後光)을 표현하는 전통은, 그 기원이 아담과 이브 시대로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대부분 옷으로 가려졌기에, 방사되는 광채가 오직 그들의 머리 둘레에서만 볼 수 있었다. 아담아들의 후손들은 영적 발전에서 비상하다고 믿어지는 개별존재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항상 이렇게 묘사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둘 사이에 그리고 직계 후손들과 서로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 이상에서도 교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의 전달은 그들의 대뇌 구조물들에 아주 근접해 있는 섬세한 기공실(氣孔室)들로 인해서 작동되었다. 이 기능구조에 의해 그들은 생각의 진동을 주고 또 받아들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혼란스럽거나 분열되면 즉시 멈추어져 버렸다.

아담의-자녀들은 16살이 될 때까지는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자체 학교에 다녔다. 어린아이들은 매 30분마다 활동을 바꾸었고,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한 시간마다 그렇게 하였다. 전적인 재미를 위한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의 열광적인 활동과 놀이는 유란시아에서는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지금-현재 인류들의 놀이와 유머는 많은 부분이 아담의-혈통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아담-사람들은 모두들 예리한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

약혼하는 평균 연령은 18세였는데, 그 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부부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2년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20세가 되면 그들은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 후에

joint parentage with the mortal stock of earth. And this does not include the Adamic parentage to the Nodite and evolutionary races.

74:6.3 (834.5) The Adamic children did not take milk from animals when they ceased to nurse the mother's breast at one year of age. Eve had access to the milk of a great variety of nuts and to the juices of many fruits, and knowing full well the chemistry and energy of these foods, she suitably combined them for the nourishment of her children until the appearance of teeth.

74:6.4 (834.6) While cooking was universally employed outside of the immediate Adamic sector of Eden, there was no cooking in Adam's household. They found their foods — fruits, nuts, and cereals — ready prepared as they ripened. They ate once a day, shortly after noontime. Adam and Eve also imbibed “light and energy” direct from certain space eman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the tree of life.

74:6.5 (834.7) The bodies of Adam and Eve gave forth a shimmer of light, but they always wore clothing in conformity with the custom of their associates. Though wearing very little during the day, at eventide they donned night wraps. The origin of the traditional halo encircling the heads of supposed pious and holy men dates back to the days of Adam and Eve. Since the light emanations of their bodies were so largely obscured by clothing, only the radiating glow from their heads was discernible. The descendants of Adamson always thus portrayed their concept of individuals believed to be extraordinary in spiritual development.

74:6.6 (834.8) Adam and Eve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with their immediate children over a distance of about fifty miles. This thought exchange was effected by means of the delicate gas chambers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ir brain structures. By this mechanism they could send and receive thought oscillations. But this power was instantly suspended upon the mind's surrender to the discord and disruption of evil.

74:6.7 (835.1) The Adamic children attended their own schools until they were sixteen, the younger being taught by the elder. The little folks changed activities every thirty minutes, the older every hour. And it was certainly a new sight on Urantia to observe these children of Adam and Eve at play, joyous and exhilarating activity just for the sheer fun of it. The play and humor of the present-day races are largely derived from the Adamic stock. The Adamites all had a great appreciation of music as well as a keen sense of humor.

74:6.8 (835.2) The average age of betrothal was eighteen, and these youths then entered upon a two years' course of instruction in preparation for the assumption of marital responsibilities. At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대신에 다른 특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후대의 나라들에서, 하느님들의 후손으로 여기면서 왕족들은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실천하였는데, 이 전통은 아담의-자손을 낳기-짝짓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짝짓기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동산에서 자라난 제 1대와 2대 자손들까지는, 그들의 결혼식을 아담과 이브가 항상 주재하였다.

제 7 장. 동산에서의 생활

아담의 자녀들은, 4년 동안 서쪽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들은 예루셈 학교들의 방식에 따라 16세가 될 때까지 지적(知的)인 훈련을 받았다. 16세에서 20세까지는 동산의 반대쪽 끝에 있는 유란시아의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곳에서는 낮은학년의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동산의 서쪽에 있는 학교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화(社會化)였다. 휴식시간의 오전 기간에는 원예업과 농업 실천 실습으로 보냈고, 오후시간은 경쟁적인 운동 경기를 하였다. 저녁에는 사회적인 교제와 개인적 사교를 통한 수양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종교와 성교육(性教育)은 가정의 직분, 부모들의 임무로 간주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르쳤다:

1. 건강과 몸을 돌보는 일.
2. 황금률(黃金律), 사회적 교제의 표준.
3. 집단적 권리와 공동체 임무에 대한 개별적 권리의 관계.
4. 이 세상의 여러 인종들에 관한 역사와 문화.
5.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들.
6. 상충되는 임무들과 감정들의 조화-협동.
7. 오락, 유머, 그리고 육체적인 투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수련.

사실상 동산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는 방문자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었다. 무기를 갖지 않은 관찰자들이 에덴을 잠깐 방문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유란시아인 이 동산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입양되어야” 했다. 그는 아담의-증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이 과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twenty they were eligible for marriage; and after marriage they began their lifework or entered upon special preparation therefor.

74:6.9 (835.3) The practice of some subsequent nations of permitting the royal families, supposedly descended from the gods, to marry brother to sister, dates from the traditions of the Adamic offspring — mating, as they must needs, with one another. The marriage ceremonie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the Garden were always performed by Adam and Eve.

7. LIFE IN THE GARDEN

74:7.1 (835.4) The children of Adam, except for four years' attendance at the western schools, lived and worked in the “east of Eden.” They were trained intellectually until they were sixteen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of the Jerusalem schools. From sixteen to twenty they were taught in the Urantia schools at the other end of the Garden, serving there also as teachers in the lower grades.

74:7.2 (835.5) The entire purpose of the western school system of the Garden was *socialization*. The forenoon periods of recess were devoted to practical horticulture and agriculture, the afternoon periods to competitive play. The evenings were employed in social intercourse and the cultivation of personal friendships. Religious and sexual training were regarded as the province of the home, the duty of parents.

74:7.3 (835.6) The teaching in these schools included instruction regarding:

- 74:7.4 (835.7) 1. Health and the care of the body.
- 74:7.5 (835.8) 2. The golden rule, the standard of social intercourse.
- 74:7.6 (835.9) 3. The relation of individual rights to group rights and community obligations.
- 74:7.7 (835.10) 4. History and culture of the various earth races.
- 74:7.8 (835.11) 5. Methods of advancing and improving world trade.
- 74:7.9 (835.12) 6. Co-ordination of conflicting duties and emotions.
- 74:7.10 (835.13) 7. The cultivation of play, humor, and competitive substitutes for physical fighting.

74:7.11 (835.14) The schools, in fact every activity of the Garden, were always open to visitors. Unarmed observers were freely admitted to Eden for short visits. To sojourn in the Garden a Urantian had to be “adopted.” He received instructions in the plan and purpose of the Adamic bestowal, signified his intention to adhere to this

표시하였으며, 그리고 나서는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 아버지의 영적인 주권에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

동산의 법은 달라마시아의 옛 관례들에 기초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제목들을 중심으로 선포되었다:

1.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
2. 동산의 사회적 규정들.
3. 무역과 상업에 관한 관례들.
4. 공정한 경기와 시합에 관한 법.
5. 가정생활에 관한 법.
6. 황금률에 관한 시민적 관례들.
7. 최극 도덕적 규칙의 일곱 가지 계명들.

에덴의 도덕법은 달라마시아의 7계명과 약간 달랐다. 그러나 아담-사람들은 이들 계명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이유들을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살인 금지명령에 대해, 생각 조절자의 내주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그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에덴의 대중 경배 시간은 정오였고; 해 질 무렵은 가족 경배의 시간이었다. 아담은 사람들이 미리 짜인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만류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은 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혼의 열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에덴-사람들은 기도문이나 달라마시아 시대로부터 전해온 형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또한 아담은 종교 의식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 대신으로 땅에서 난 과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지만, 동산이 몰락하기 전에는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아담은 성의 동등성을 종족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이브가 남편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모습은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아담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려고 연합하는, 생명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리하여 인류는 모든 생식력이 “아버지의 허리” 속에 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어머니란 단지 태아를 양육하고 태어난 뒤에는 기르는 역할만을 할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비교적 높은 지상의 인류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보라색 인종의 자손들과의 상호결혼이 허락될 그 날들을 간절히 고대하였다. 만약 인류

mission, and then made declaration of loyalty to the social rule of Adam and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the Universal Father.

74:7.12 (836.1) The laws of the Garden were based on the older codes of Dalamatia and were promulgated under seven heads:

74:7.13 (836.2) 1. The laws of health and sanitation.

74:7.14 (836.3) 2. The social regulations of the Garden.

74:7.15 (836.4) 3. The code of trade and commerce.

74:7.16 (836.5) 4. The laws of fair play and competition.

74:7.17 (836.6) 5. The laws of home life.

74:7.18 (836.7) 6. The civil codes of the golden rule.

74:7.19 (836.8) 7. The seven commands of supreme moral rule.

74:7.20 (836.9) The moral law of Eden was little different from the seven commandments of Dalamatia. But the Adamites taught many additional reasons for these commands; for instance, regarding the injunction against murder, the indwelling of the Thought Adjuster was presented as an additional reason for not destroying human life. They taught that “whoso sheds man’s blood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made he man.”

74:7.21 (836.10) The public worship hour of Eden was noon; sunset was the hour of family worship. Adam did his best to discourage the use of set prayers, teaching that effective prayer must be wholly individual, that it must be the “desire of the soul”; but the Edenites continued to use the prayers and forms handed down from the times of Dalamatia. Adam also endeavored to substitute the offerings of the fruit of the land for the blood sacrifices in the religious ceremonies but had made little progress before the disruption of the Garden.

74:7.22 (836.11) Adam endeavored to teach the races sex equality. The way Eve worked by the side of her husband made a profound impression upon all dwellers in the Garden. Adam definitely taught them that the woman, equally with the man, contributes those life factors which unite to form a new being. Therefore, mankind had presumed that all procreation resided in the “loins of the father.” They had looked upon the mother as being merely a provision for nurturing the unborn and nursing the newborn.

74:7.23 (836.12) Adam taught his contemporaries all they could comprehend, but that was not very much, comparatively speaking. Nevertheless, the more intelligent of the races of earth looked forward eagerly to the time when they would be permitted to intermarry with the superior children

항상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유란시아는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겠는가!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상황 아래에서도, 진화하는 민족들이 우연히 간직하게 된, 다른 곳으로부터 도래된 이 인종의 소량의 피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그렇게 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하고 혼혈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제 8 장. 창조 설화

6일 만에 유란시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시찰하는데 6일이 걸렸던 사건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인 들에게서 기원되어 소개되었던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거의 신성시되는 권위를 덧붙였다. 아담이 동산을 검열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6일을 소비한 것은, 미리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하루하루 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 7일을 경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서술한 상황에 따라 일어난, 전적으로 우연한 사실이었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은 후대의 생각이었으며, 사실 그것은 그때로부터 3만년 이상이 흐른 뒤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 이야기의 중의 한 부분인, 해와 달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일화는, 아마도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미세한 물질의 밀도 있는 구름으로부터 세계가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한때의 전통에서 기원된 것처럼 보인다.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의-도착과, 45만년보다 더 이전에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의 도래 시에 생명 물질의 교환을 위해 천상(天上)의 수술을 받은 것과 뒤섞여서 혼동되어진 요약이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래할 때 그들을 위해 창조된 물리적 형태를 가졌다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람이 진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東半球)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 전통은 필리핀군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진보적인 창조-진화-를 믿는 초기의 신앙 대신에, 사람이 진흙에서 만들어졌다는 특별한 창조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었다.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인류는 인간 종족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믿음으로 기울었다. 진화의 사실성은 현대의 발견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인간의 진보가 천천히 그리고 진화적이라는 성격을 납득하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근접하여 있

of the violet race. And what a different world Urantia would have become if this great plan of uplifting the races had been carried out! Even as it was, tremendous gains resulted from the small amount of the blood of this imported race which the evolutionary peoples incidentally secured.

74:7.24 (836.13) And thus did Adam work for the welfare and uplift of the world of his sojourn. But it was a difficult task to lead these mixed and mongrel peoples in the better way.

8. THE LEGEND OF CREATION

74:8.1 (836.14) The story of the creation of Urantia in six days was based on the tradition that Adam and Eve had spent just six days in their initial survey of the Garden. This circumstance lent almost sacred sanction to the time period of the week, which had been originally introduced by the Dalamatians. Adam's spending six days inspecting the Garden and formulating preliminary plans for organization was not prearranged; it was worked out from day to day. The choosing of the seventh day for worship was wholly incidental to the facts herewith narrated.

74:8.2 (837.1) The legend of the making of the world in six days was an afterthought, in fact,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afterwards. One feature of the narrative,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sun and moon, may have taken origin in the traditions of the onetime sudden emergence of the world from a dense space cloud of minute matter which had long obscured both sun and moon.

74:8.3 (837.2) The story of creating Eve out of Adam's rib is a confused condensation of the Adamic arrival and the celestial surgery connected with the interchange of living substances associated with the coming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more than four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previously.

74:8.4 (837.3) The majority of the world's peopl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tradition that Adam and Eve had physical forms created for them upon their arrival on Urantia. The belief in man's having been created from clay was well-nigh universal in the Eastern Hemisphere; this tradition can be traced from the Philippine Islands around the world to Africa. And many groups accepted this story of man's clay origin by some form of special creation in the place of the earlier beliefs in progressive creation — evolution.

74:8.5 (837.4) Away from the influences of Dalamatia and Eden, mankind tended toward the belief in the gradual ascent of the human race. The fact of evolution is not a modern discovery; the ancients understood the slow and evolutionary character of human progress. The early Greeks had clear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명백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이 그들의 진화개념에서 딱할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시 부족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지는 동물들을 자신들의 “토템”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실천 관행을 만들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들이 비이버 또는 늑대로부터 나왔다고 믿었다.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자신들이 하이에나로부터, 말레이 부족은 여우원숭이로부터, 그리고 뉴기니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담-사람 문명의 잔재와 곧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더욱 커지게 하였고 미화시켰다; 그들은 사람을 하느님들로부터 직접 내려왔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종족의 귀족스러운 기원을 고수하였다.

구약 성경의 창조 설화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온 것이다; 그는 결코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고 함축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에 관한 간단하고 함축된 이야기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창조자이신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기 위한 호소를 그로써 증강되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모세는 그의 초기 가르침에서 매우 현명하게도 아담의-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최극 스승이었기 때문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초기의 전통들에서는 아담의-이전 시대 문명들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명확하게 보이는데, 후세의 편집자들이 아담 시대 이전의 인간 관련사들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말소시켜 버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카인이 “놋의 땅”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무심코 넘겨 버리고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로부터 알파벳의 사용법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더 높은 문명권인 크레테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인들은 기원전 9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러한 후대까지도 문자를 갖지 못하였고, 약간의 서로 다른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수정된 메소포타미아 설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추적하여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모세에 관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유대인들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정하였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야훼는 아담을 만들기 직

ideas of this despite their proximity to Mesopotamia. Although the various races of earth became sadly mixed up in their notions of evolution, nevertheless, many of the primitive tribes believed and taught that they were the descendants of various animals. Primitive peoples made a practice of selecting for their “totems” the animals of their supposed ancestry. Certain North American Indian tribes believed they originated from beavers and coyotes. Certain African tribes teach that they are descended from the hyena, a Malay tribe from the lemur, a New Guinea group from the parrot.

74:8.6 (837.5) The Babylonians, because of immediate contact with the remnants of the civilization of the Adamites, enlarged and embellished the story of man's creation; they taught that he had descended directly from the gods. They held to an aristocratic origin for the race which was incompatible with even the doctrine of creation out of clay.

74:8.7 (837.6) The Old Testament account of creation dates from long after the time of Moses; he never taught the Hebrews such a distorted story. But he did present a simple and condensed narrative of creation to the Israelites, hoping thereby to augment his appeal to worship the Creator, the Universal Father, whom he called the Lord God of Israel.

74:8.8 (837.7) In his early teachings, Moses very wisely did not attempt to go back of Adam's time, and since Moses was the supreme teacher of the Hebrews, the stories of Adam became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ose of creation. That the earlier traditions recognized pre-Adamic civilization is clearly shown by the fact that later editors, intending to eradicate all reference to human affairs before Adam's time, neglected to remove the telltale reference to Cain's emigration to the “land of Nod,” where he took himself a wife.

74:8.9 (838.1) The Hebrews had no written language in general usage for a long time after they reached Palestine. They learned the use of an alphabet from the neighboring Philistines, who were political refugees from the higher civilization of Crete. The Hebrews did little writing until about 900 B.C., and having no written language until such a late date, they had several different stories of creation in circulation, but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they inclined more toward accepting a modified Mesopotamian version.

74:8.10 (838.2) Jewish tradition became crystallized about Moses, and because he endeavored to trace the lineage of Abraham back to Adam, the Jews assumed that Adam was the first of all mankind. Yahweh was the creator, and since Adam was supposed to be the first man, he must

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6일에 대한 전통이 그 이야기에 엮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세가 땅에서 머문 지 거의 천 년이 지난 후에,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통이 기록되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모세가 쓴 것으로 그 공적이 돌아갔다.

유대인 사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사물의 시작이라는 자신들의 서술에 관한 기록을 이미 완성했었다. 그들은 곧 이 낭송이 모세가 쓴 창조 이야기로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글들이 나중에 신성한 계시로 여겨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후세 민족들이 그것들을 신화적인 서술 정도로 보리라고 여겼다.

모세의 가르침들이라고 널리 알려진 이 위조 문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인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는 70명의 학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신의 새 도서관을 위하여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경전들”이라는 수집품들의 일부가 되는 문서들 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의 정체화 구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개념들은 오랫동안 많은 서방(西方) 민족들의 철학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 교사들은 인간 종족을 명령으로 창조하였다는 믿음을 영속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유토피아의 축복을 누린 한때의 황금기에 대한 가설이 형성되게 이끌었고, 사람 또는 초(超)인간의 타락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상태의 사회를 맞게 되었다는 이론이 형성되도록 직접 이끌었다. 사람의 삶과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기껏해야 낙심만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한 때 행성의 관리행정자들이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인간 종족에게 징벌을 내리면서 격분을 쏟아냈었던 신(神)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신(神)에 대해 진보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믿음을 바탕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황금기”는 하나의 신화이지만, 에덴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전복되었다.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판단 실수를 통하여 두루, 그들은 멋대로 추측하여 정해진 길로부터 벗어났고, 결국은 급속한 자신들의 재앙은 물론 유란시아 전체의 발전적 진보에 파괴적인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have made the world just prior to making Adam. And then the tradition of Adam's six days got woven into the story, with the result that almost a thousand years after Moses' sojourn on earth the tradition of creation in six days was written out and subsequently credited to him.

74:8.11 (838.3) When the Jewish priests returned to Jerusalem, they had already completed the writing of their narrative of the beginning of things. Soon they made claims that this recital was a recently discovered story of creation written by Moses. But the contemporary Hebrews of around 500 B.C. did not consider these writings to be divine revelations; they looked upon them much as later peoples regard mythological narratives.

74:8.12 (838.4) This spurious document, reputed to be the teachings of Moses, wa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Ptolemy, the Greek king of Egypt, who had it translated into Greek by a commission of seventy scholars for his new library at Alexandria. And so this account found its place among those writings which subsequently became a part of the later collections of the “sacred scriptures” of the Hebrew and Christian religions. And through identification with these theological systems, such concepts for a long time profoundly influenced the philosophy of many Occidental peoples.

74:8.13 (838.5) The Christian teachers perpetuated the belief in the fiat creation of the human race, and all this led directly to the formation of the hypothesis of a onetime golden age of utopian bliss and the theory of the fall of man or superman which accounted for the nonutopian condition of society. These outlooks on life and man's place in the universe were at best discouraging since they were predicated upon a belief in retrogression rather than progression, as well as implying a vengeful Deity, who had vented wrath upon the human race in retribution for the errors of certain onetime planetary administrators.

74:8.14 (838.6) The “golden age” is a myth, but Eden was a fact, and the Garden civilization was actually overthrown. Adam and Eve carried on in the Garden for one hundred and seventeen years when, through the impatience of Eve and the errors of judgment of Adam, they presumed to turn aside from the ordained way, speedily bringing disaster upon themselves and ruinous retardation upon the developmental progression of all Urantia.

74:8.15 (838.7) [Narra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 75 편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

⇨ 074

유랜시아 책

07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5 편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

섹션

소개

제 1 장. 유란시아 문제

제 2 장. 칼리가스티아의 음모

제 3 장. 이브에 대한 유혹

제 4 장. 불이행에 대한 실제적 인식

제 5 장. 불이행의 반향

제 6 장.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제 7 장. 아담과 이브의 강등

제 8 장. 이른바 사람의 타락

PAPER 75

THE DEFAULT OF ADAM AND EV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Urantia Problem

2. Caligastia's Plot

3. The Temptation of Eve

4. The Realization of Default

5. Repercussions of Default

6. Adam and Eve Leave the Garden

7. Degradation of Adam and Eve

8. The So-Called Fall of Man

소개

유란시아에서 100년이 넘도록 수고한 후에도, 동산 바깥의 세상에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담은 알 수 있었다; 그 세계는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지 않는 듯이 보였다. 더 나은 종족으로의 실현은 머나먼 것처럼 보였으며,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본래의 계획에 없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것은 아담의 마음을 종종 스쳐갔고, 그는 이브에게 자신의 심정을 여러 번 고백하였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충성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처한 세상의 곤혹스런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INTRODUCTION

75:0.1 (839.1)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effort on Urantia, Adam was able to see very little progress outside the Garden; the world at large did not seem to be improving much. The realization of race betterment appeared to be a long way off, and the situation seemed so desperate as to demand something for relief not embraced in the original plans. At least that is what often passed through Adam's mind, and he so expressed himself many times to Eve. Adam and his mate were loyal, but they were isolated from their kind, and they were sorely distressed by the sorry plight of their world.

제 1 장. 유란시아 문제

시험적이고 반역으로 피폐되어 있었던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아담의-임무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었다. 그리고 물질아들과 딸은 자기들이 배정된 그 행성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라는 종족들로부터 결함

1. THE URANTIA PROBLEM

75:1.1 (839.2) The Adamic mission on experimental, rebellion-seared, and isolated Urantia was a formidable undertaking. And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early became aware of the difficulty and complexity of their planetary assignment. Nevertheless, they courageously set about the task of solving their manifold problems. But when

들과 변질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작업에 막상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예루셈이나 에덴시아에 있는 자신들의 상급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매일같이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문제들과 부딪혔는데,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정상적인 조건 속에서는, 행성 아담과 이브가 조화-협동하여 인종들의 피를 섞는 것이 첫째 업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종족들이 생물학적으로는 혼혈이 가능했지만, 그들의 퇴행과 결합투성으로 변질된 상태는 결코 정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사람의 형제신분을 선포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체, 비참한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앞서있었던 관리-행정의 사명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욱 심하게 엉망진창이 된 혼란으로 저주받은 세계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과 도덕은 낮은 차원에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 합일을 이룩하는 과업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들은 거주자들을 종교적 믿음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전환하는 일을 모두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채택하기에 알맞은 한 가지 언어를 발견하기는커녕, 그들은 수 백 가지의 지방 사투리를 지닌 수많은 전-세계적 혼란을 마주보게 되었다. 행성 봉사의 그 어떤 아담도 이보다 더 어려운 세계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였고, 문제들은 창조체의 해결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멜기세덱 접수자들마저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지치게 만드는 엄청난 고독감이 더욱 심하게 일어났다. 오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의 계층을 이용해서 다른 행성의 어떤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용기는 서서히 약해져 갔고, 그들의 영은 시들어졌고 때때로는 신앙마저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

이상(以上)과 같은 것이, 자신들 앞에 부닥친 업무들을 고려할 때마다, 두 고상한 혼들이 대경실색한 진정한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 과제의 해결에 관계된 엄청난 업무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어쩌면 네바돈의 어떤 물질 아들들도, 유란시아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닥친 곤경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업무에 직면한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임했었다라면, 그들은 언젠가는 성공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둘 모두, 특히 이브는 참을성이 좀 부족하였는데, 그들은 오래 오래 견디는 시험에 안주하기를 싫어하였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였고,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 결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하는 일을 겪었던 것이다.

they addressed themselves to the all-important work of eliminating the defectives and degenerates from among the human strains, they were quite dismayed. They could see no way out of the dilemma, and they could not take counsel with their superiors on either Jerusem or Edentia. Here they were, isolated and day by day confronted with some new and complicated tangle, some problem that seemed to be unsolvable.

75.1.2 (839.3) Under normal conditions the first work of a Planetary Adam and Eve would be the co-ordination and blending of the races. But on Urantia such a project seemed just about hopeless, for the races, while biologically fit, had never been purged of their retarded and defective strains.

75.1.3 (839.4) Adam and Eve found themselves on a sphere wholly unprepared for the proclam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a world groping about in abject spiritual darkness and cursed with confusion worse confounded by the miscarriage of the mission of the preceding administration. Mind and morals were at a low level, and instead of beginning the task of effecting religious unity, they must begin all anew the work of converting the inhabitants to the most simple forms of religious belief. Instead of finding one language ready for adoption, they were confronted by the world-wide confusion of hundreds upon hundreds of local dialects. No Adam of the planetary service was ever set down on a more difficult world; the obstacles seemed insuperable and the problems beyond creature solution.

75.1.4 (839.5) They were isolated, and the tremendous sense of loneliness which bore down upon them was all the more heightened by the early departur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Only indirectly, by means of the angelic orders, could they communicate with any being off the planet. Slowly their courage weakened, their spirits drooped, and sometimes their faith almost faltered.

75.1.5 (840.1) And this is the true picture of the consternation of these two noble souls as they pondered the tasks which confronted them. They were both keenly aware of the enormous undertaking involved in the execution of their planetary assignment.

75.1.6 (840.2) Probably no Material Sons of Nebadon were ever faced with such a difficult and seemingly hopeless task as confronted Adam and Eve in the sorry plight of Urantia. But they would have sometime met with success had they been more farseeing and *patient*. Both of them, especially Eve, were altogether too impatient; they were not willing to settle down to the long, long endurance test. They wanted to see some immediate results, and they did, but the results thus secured proved most disastrous both to

themselves and to their world.

제 2 장. 칼리가스티아의 음모

칼리가스티아는 동산을 자주 방문하였고 아담과 이브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가 제안하는 타협안과 지름길처럼 보이는 모험들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한 모든 간사한 제안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역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반역의 결과들이 그들 앞에는 너무 많이 널려있었다. 아담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달리가스티아의 제안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다. 물론 칼리가스티아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어떤 개별존재에게든지 그의 의지에 역행하는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아담의 자녀들이 그릇된 일을 하도록 설득할 힘은 더욱 없었다.

칼리가스티아가 여전히 유란시아의 유명무실한 행성영주, 잘못 인도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우주의 높은 아들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 그리스도 미가엘의 때가 오기까지 최종적으로 폐위 당하지는 않았다.

이 타락한 영주는 집요하였고 단호하였다. 그는 곧 아담에 대한 공작(工作)을 포기하고 이브에 대하여 교활한 측면 공격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악인(惡人)은, 한 때 육체를 가졌던 자기 참모진의 후손들인, 낯-사람들 종족의 상류 계층 중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를 적절한 방법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아담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성 신뢰도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브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다. 훨씬 광범위한 효과들을 위하여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들을 여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떠나기 전에 특별히 이브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것들은 행성의 고립된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에 관한 경고였으며 특히 그녀의 반려자 곁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상호적인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이나 혼자 비밀을 지키는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브는 백 년 이상 아주 면밀하게 이 지시들을 지켜나갔으며, 세라파타샤라는 이름의 어느 낯-사람 영도자와의 방문을 점점 더 사적(私的)이고 은밀하게 즐기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험스러운 일도 그녀에게 발생되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갔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동산의 거주자들은 에덴의 초기부터 낯-사람들과 접촉을 해왔다. 칼리가스티아 참모들의 불이행 가담 구성원들의 혼혈 후손인 그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가치 있는 도움과 협조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에덴의 체제는 이제 완벽한 작동능력과 최종 전복을 맞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2. CALIGASTIA'S PLOT

75:2.1 (840.3) Caligastia paid frequent visits to the Garden and held many conferences with Adam and Eve, but they were adamant to all his suggestions of compromise and short-cut adventures. They had before them enough of the results of rebellion to produce effective immunity against all such insinuating proposals. Even the young offspring of Adam were uninfluenced by the overtures of Daligastia. And of course neither Caligastia nor his associate had power to influence any individual against his will, much less to persuade the children of Adam to do wrong.

75:2.2 (840.4) It must be remembered that Caligastia was still the titular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 misguided but nevertheless high Son of the local universe. He was not finally deposed until the time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75:2.3 (840.5) But the fallen Prince was persistent and determined. He soon gave up working on Adam and decided to try a wily flank attack on Eve. The evil one concluded that the only hope for success lay in the adroit employment of suitable persons belonging to the upper strata of the Nodite group, the descendants of his onetime corporeal-staff associates. And the plans were accordingly laid for entrapping the mother of the violet race.

75:2.4 (840.6) It was farthest from Eve's intention ever to do anything which would militate against Adam's plans or jeopardize their planetary trust. Knowing the tendency of woman to look upon immediate results rather than to plan farsightedly for more remote effects, the Melchizedeks, before departing, had especially enjoined Eve as to the peculiar dangers besetting their isolated position on the planet and had in particular warned her never to stray from the side of her mate, that is, to attempt no personal or secret methods of furthering their mutual undertakings. Eve had most scrupulously carried out these instructions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nd it did not occur to her that any danger would attach to the increasingly private and confidential visits she was enjoying with a certain Nodite leader named Serapatatia. The whole affair developed so gradually and naturally that she was taken unawares.

75:2.5 (840.7) The Garden dwellers had been in contact with the Nodites since the early days of Eden. From these mixed descendants of the defaulting members of Caligastia's staff they had received much valuable help and co-operation, and through them the Edenic regime was now to meet its complete undoing and final overthrow.

제 3 장. 이브에 대한 유혹

세라파타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낯-사람 부족들의 서쪽 지역인 시리아 동맹국의 영도자관계가 되었을 때, 아담은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100년을 막 완결하고 있었다. 세라파타샤는 갈색 피부의 남자였는데, 오랜 옛날 청색 인종의 여자 족장들 중의 하나와 결혼한, 한 때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의 영리한 후손이었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 가문이 권력을 잡았고 서쪽에 있는 낯-사람 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세라파타샤는 동산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아담이 내세운 대의명분의 정의로움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시리아에 있는 낯-사람들의 영도자관계가 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일에 제후할 뜻을 표명하였다. 그의 백성들 중 대다수가 이 계획에 참여하였고, 아담은 모든 이웃 종족들 중에서 가장 힘 있고 지적인 종족이 세계의 개선을 위한 계획에 헌신적인 지원을 맹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기운이 나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건 후에 곧 세라파타샤와 그의 새 직원들은 아담과 이브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세라파타샤는 아담의 부관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전적으로 정직하였고 자신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철저히 성실하였지만; 그는 나중에까지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교환한 칼리가스티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세라파타샤는 부족 간의 관계들에 관한 에덴의 참모 회의의 의장이 되었고, 외부 부족들을 합병시키는 일에 있어서 동산의 노선을 따라 좀 더 정력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특히 이브와—많은 의논을 하였으며, 그들의 방법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했다. 하루는 그가 이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세라파타샤에게 문득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보라색 인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이라도 매우 궁핍하게 기다리는 부족들을 즉시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세라파타샤는, 만약 가장 진보적이고 협력적인 부족인 낯-사람들이 보라색 인종과의 혼혈로부터 태어난 영도자를 가질 수 있다면, 이들 부족들과 동산의 정부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동산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서 자신의 아버지 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고

3. THE TEMPTATION OF EVE

75:3.1 (841.1) Adam had just finished his first one hundred years on earth when Serapatatia, upon the death of his father, came to the leadership of the western or Syrian confederation of the Nodite tribes. Serapatatia was a brown-tinted man, a brilliant descendant of the onetime chief of the Dalamatia commission on health mated with one of the master female minds of the blue race of those distant days. All down through the ages this line had held authority and wielded a great influence among the western Nodite tribes.

75:3.2 (841.2) Serapatatia had made several visits to the Garden and had become deeply impressed with the righteousness of Adam's cause. And shortly after assuming the leadership of the Syrian Nodites, he announced his intention of establishing an affiliation with the work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The majority of his people joined him in this program, and Adam was cheered by the news that the most powerful and the most intelligent of all the neighboring tribes had swung over almost bodily to the support of the program for world improvement; it was decidedly heartening. And shortly after this great event, Serapatatia and his new staff were entertained by Adam and Eve in their own home.

75:3.3 (841.3) Serapatatia became one of the most able and efficient of all of Adam's lieutenants. He was entirely honest and thoroughly sincere in all of his activities; he was never conscious, even later on, that he was being used as a circumstantial tool of the wily Caligastia.

75:3.4 (841.4) Presently, Serapatatia became the associate chairman of the Edenic commission on tribal relations, and many plans were laid for the more vigorous prosecution of the work of winning the remote tribes to the cause of the Garden.

75:3.5 (841.5) He held many conferences with Adam and Eve — especially with Eve — and they talked over many plans for improving their methods. One day, during a talk with Eve, it occurred to Serapatatia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if, while awaiting the recruiting of large numbers of the violet race, something could be done in the meantime immediately to advance the needy waiting tribes. Serapatatia contended that, if the Nodites, as the most progressive and co-operative race, could have a leader born to them of part origin in the violet stock, it would constitute a powerful tie binding these peoples more closely to the Garden. And all of this was soberly and honestly considered to be for the good of the world since this child, to be reared and educated in the Garden, would exert a great influence for good over his father's people.

도 사심 없이 하게 되었다.

세라파타샤가 전적으로 정직하였고 그가 제안하였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진지하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라파타샤는 유란시아의 혼잡스런 사람들을 전(全)세계적으로 진일보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보라색 인종을 견실하게 확보하려는 계획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더할 나위 없이 이루는 데에 수백 년의 세월이 요구되었고, 그는 참을성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결과들을—자신의 생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보기를 원하였다. 그는 그 세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성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자주 용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이브에게 확인시켰다.

5년 이상이나 이 계획들이 비밀스럽게 무르익어 왔다. 마침내 그들은, 인근의 우호적인 이웃-사람들의 거류민단에서 가장 현명하고 활동적인 영도자인 카노와 이브가 비밀 회합을 갖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카노는 아담의-통치체제에 매우 동정적인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동산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인근의 이웃-사람들의 영적(靈的) 영도자였던 것이다.

어느 가을 날 저녁 황혼 무렵의 몇 시간 동안에, 아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숙명적인 만남이 발생하였다. 이브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카노를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그는 그의 먼 선조가 행성영주의 신하였고, 우월한 신체와 뛰어난 지능을 지닌 생존자의 훌륭한 표본이었다. 그리고 카노 역시 세라파타샤가 제시한 계획의 정의로움을 철저히 믿었다. (동산 밖에서는 복수(複數)의 결합이 통상적인 실천 관행이었다.)

감언(甘言)과 열정 그리고 훌륭한 개인적 설득에 자극을 받은 이브는 여러 번 논의된 계획에 착수할 것과, 더 크고 웅대한 신성한 계획 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녀 자신의 작은 계획을 덧붙이기로 그때 그 자리에서 동의하였다. 그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미처 깨닫기 전에, 운명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그 일은 이루어졌다.

제 4 장. 불이행에 대한 실제적 인식

그 행성에 있는 천상의 생명이 동요되었다. 아담은 뭔가가 그릇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브를 동산 한쪽 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 아담은 세상의 개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시에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하는,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세라파타샤의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계획의 전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물질아들과 딸이 달빛 어린 동산에서 그렇게

75:3.6 (841.6) It should again be emphasized that Serapatatia was altogether honest and wholly sincere in all that he proposed. He never once suspected that he was playing into the hands of Caligastia and Daligastia. Serapatatia was entirely loyal to the plan of building up a strong reserve of the violet race before attempting the world-wide upstepping of the confused peoples of Urantia. But this would require hundreds of years to consummate, and he was impatient; he wanted to see some immediate results — something in his own lifetime. He made it clear to Eve that Adam was oftentimes discouraged by the little that had been accomplished toward uplifting the world.

75:3.7 (841.7) For more than five years these plans were secretly matured. At last they had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Eve consented to have a secret conference with Cano, the most brilliant mind and active leader of the near-by colony of friendly Nodites. Cano was very sympathetic with the Adamic regime; in fact, he was the sincere spiritual leader of those neighboring Nodites who favore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Garden.

75:3.8 (842.1) The fateful meeting occurred during the twilight hours of the autumn evening, not far from the home of Adam. Eve had never before met the beautiful and enthusiastic Cano — and he was a magnificent specimen of the survival of the superior physique and outstanding intellect of his remote progenitors of the Prince's staff. And Cano also thoroughly believed in the righteousness of the Serapatatia project. (Outside of the Garden, multiple mating was a common practice.)

75:3.9 (842.2) Influenced by flattery, enthusiasm, and great personal persuasion, Eve then and there consented to embark upon the much-discussed enterprise, to add her own little scheme of world saving to the larger and more far-reaching divine plan. Before she quite realized what was transpiring, the fatal step had been taken. It was done.

4. THE REALIZATION OF DEFAULT

75:4.1 (842.3) The celestial life of the planet was astir. Adam recognized that something was wrong, and he asked Eve to come aside with him in the Garden. And now, for the first time, Adam heard the entire story of the long-nourished plan for accelerating world improvement by operating simultaneously in two directions: the prosecution of the divine plan concomitantly with the execution of the Serapatatia enterprise.

75:4.2 (842.4) And as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교제하고 있을 때, “동산의 음성”이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였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다른 나 자신이었고, 나는 에덴의 남녀 한 쌍에게 그들이 동산의 서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들이 멜기세덱들의 지시사항들을 어겼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의 주권을 신뢰하겠다고 한 그들의 맹세를 실행하는데 불이행하였다는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브는 선(善)과 악(惡)의 실천에 참가하기로 이미 동의하였던 것이었다. 선이란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고; 죄란 신성한 의지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악이란, 그 결과로 우주의 부조화와 행성의 혼란을 초래되는, 계획들의 잘못된 적응과 기법들의 잘못된 조절이다.

동산의 그 한 쌍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그들은 보호관리자 천사장으로부터 선과 악을 결합시키는 칼리가스티아의 제의에 따르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훈계를 받았다: “너희가 선과 악을 병합하는 날, 너희는 반드시 영역의 필사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브는 자주 반복되었던 이 경고를 비밀리에 행해진 치명적인 만남의 날에 카노에게 말했었지만, 카노는 그러한 경고의 중요성이나 의의(意義)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선한 동기와 진실한 의도로 만나기는 것은 악이 될 수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으며; 그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자손들 속에서 새롭게 살게 될 것이며, 그 자손들은 축복 속에서 성장하여 세상을 평정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신성한 계획을 변경시킨 이러한 계획이 전적으로 진지하게 또한 세상의 복지를 위한 가장 고상한 동기들만으로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릇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기에 악을 조성시켰는데, 정당한 결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브는 카노가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자임을 발견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유혹한 자가 “인간 관련사에서 새롭고도 증대된 지식, 그리고 아담의-자연본성에 대한 이해에서의 보충이 됨으로서, 그에 따라 인간 자연본성을 신속하게 압득”의 방법을 약속한 것, 그 모든 것을 실현했다.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날 밤 동산에서 보라색 인종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때 어머니 이브가 불이행을 저지르게 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런 후 그들 둘 모두에게 당면한 상황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었다. 그들은 이 충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켰고 어떤 것은 무시하였다. 너희가 읽는 기록들에서는 이 만남이 “주 하느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적혀있다. 그것이 자연적이건 영적이건 관계없이, 유별나고 비상한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개인적 개입으로 직접 돌리는 것이, 후대 사람들의 실

thus communed in the moonlit Garden, “the voice in the Garden” reproved them for disobedience. And that voice was none other than my own announcement to the Edenic pair that they had transgressed the Garden covenant; that they had disobeyed the instructions of the Melchizedeks; that they had defaulted in the execution of their oaths of trust to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75.4.3 (842.5) Eve ha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practice of good and evil. Good is the carrying out of the divine plans; sin is a deliberate transgression of the divine will; evil is the misadaptation of plans and the maladjustment of techniques resulting in universe disharmony and planetary confusion.

75.4.4 (842.6) Every time the Garden pair had partaken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they had been warned by the archangel custodian to refrain from yielding to the suggestions of Caligastia to combine good and evil. They had been thus admonished: “In the day that you commingle good and evil, you shall surely become as the mortals of the realm; you shall surely die.”

75.4.5 (842.7) Eve had told Cano of this oft-repeated warning on the fateful occasion of their secret meeting, but Cano, not knowing the import or significance of such admonitions, had assured her that men and women with good motives and true intentions could do no evil; that she should surely not die but rather live anew in the person of their offspring, who would grow up to bless and stabilize the world.

75.4.6 (842.8) Even though this project of modifying the divine plan had been conceived and executed with entire sincerity and with only the highest motives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 world, it constituted evil because it represented the wrong way to achieve righteous ends, because it departed from the right way, the divine plan.

75.4.7 (843.1) True, Eve had found Cano pleasant to the eyes, and she realized all that her seducer promised by way of “new and increased knowledge of human affairs and quickene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s supplemental to the comprehension of the Adamic nature.”

75.4.8 (843.2) I talked to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violet race that night in the Garden as became my duty under the sorrowful circumstances. I listened fully to the recital of all that led up to the default of Mother Eve and gave both of them advice and counsel concerning the immediate situation. Some of this advice they followed; some they disregarded. This conference appears in your records as “the Lord God calling to Adam and Eve in the Garden and asking, ‘Where are you?’” It was the practice of later generations to attribute everything unusual and extraordinary, whether natural or spiritual, directly to the personal

천 관행이었다.

제 5 장. 불이행의 반향

이브가 느낀 환멸감은 정말 애처로운 것이었다. 아담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탄 속에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반려자에게 오직 연민과 동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브가 실수를 저지른 다음 날, 아담은 실패가 실현되었다는 좌절감 속에서 동산의 서쪽 학교 책임자로 있는 낯-사람의 현명한 여자인 라오타를 찾아갔으며, 그는 계획적으로 이브와 똑같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브의 운명을 분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초인간적 애정으로 자신의 반려자를 사랑하였으며, 그녀 없이 고독하게 유란시아를 지켜야만 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그가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동산의 거주자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낯-사람 정착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에덴의 문들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습격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섬멸하였다—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카인의 아버지인 카노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현으로 나타나자, 세라파타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경악과 공포로 자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다음날 그도 큰 강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하였다.

아담이 30일 동안 홀로 방랑하는 동안, 아담의 자녀들은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 저절로 내려진 결정으로, 아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미래에 대한 행동 노선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잘못-인도된 부모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결과는 그들의 죄 없는 자식들에게까지도 종종 영향을 미치게 한다. 아담과 이브의 정직하고 고상한 아들과 딸들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덮친 설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슬픔과 비극에 이미 갇혀 있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녀들은 그 비극의 날들 동안의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남편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30일 동안에 그들이 체험하였던 공포에서 헤어나기 어려웠다.

그 30일 동안은 이브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긴 세월이었다. 이 고상한 혼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슬픔의 후유증에서 결코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다. 후일 그들이 겪게 되는 궁핍과 물질적 고난

intervention of the Gods.

5. REPERCUSSIONS OF DEFAULT

75:5.1 (843.3) Eve's disillusionment was truly pathetic. Adam discerned the whole predicament and, while heartbroken and dejected, entertained only pity and sympathy for his erring mate.

75:5.2 (843.4) It was in the despair of the realization of failure that Adam, the day after Eve's misstep, sought out Laotta, the brilliant Nodite woman who was head of the western schools of the Garden, and with premeditation committed the folly of Eve. But do not misunderstand; Adam was not beguiled; he knew exactly what he was about; he deliberately chose to share the fate of Eve. He loved his mate with a supermortal affection, and the thought of the possibility of a lonely vigil on Urantia without her was more than he could endure.

75:5.3 (843.5) When they learned what had happened to Eve, the infuriated inhabitants of the Garden became unmanageable; they declared war on the near-by Nodite settlement. They swept out through the gates of Eden and down upon these unprepared people, utterly destroying them — not a man, woman, or child was spared. And Cano, the father of Cain yet unborn, also perished.

75:5.4 (843.6) Upon the realization of what had happened, Serapatatia was overcome with consternation and beside himself with fear and remorse. The next day he drowned himself in the great river.

75:5.5 (843.7) The children of Adam sought to comfort their distracted mother while their father wandered in solitude for thirty days. At the end of that time judgment asserted itself, and Adam returned to his home and began to plan for their future course of action.

75:5.6 (843.8) The consequences of the follies of misguided parents are so often shared by their innocent children. The upright and noble sons and daughters of Adam and Eve were overwhelmed by the inexplicable sorrow of the unbelievable tragedy which had been so suddenly and so ruthlessly thrust upon them. Not in fifty years did the older of these children recover from the sorrow and sadness of those tragic days, especially the terror of that period of thirty days during which their father was absent from home while their distracted mother was in complete ignorance of his whereabouts or fate.

75:5.7 (843.9) And those same thirty days were as long years of sorrow and suffering to Eve. Never did this noble soul fully recover from the effects of that excruciating period of mental suffering and

은 이브의 기억에 새겨진 그 끔직한 나날들이나 외롭고 견딜 수 없이 불안했던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라파타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으나, 그녀의 짝이 슬픔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파괴한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실족에 대한 징벌로 세상으로부터 제거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아담이 돌아오자, 이브는 기쁨과 고마움의 만족을 체험했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고된 봉사의 길고도 어려운 일생 동반자관계에 의해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담은 이브의 불이행 이후에 70일이 지날 때까지, 자신들의 위반의 본성이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는데, 그 때 멜키세덱 접수자들이 유란시아로 되돌아와서 세상 관련사에 대한 주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 때에서야 그는 자기들이 이미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는데: 에덴 근처에 있는 낯-사람 정착민들의 절멸에 대한 소식들이 북쪽에 있는 세라파타샤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동산으로 진군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아담-사람들과 낯-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길고도 쓰라린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아담과 그의 무리들이 유프라테스 골짜기에 세운 두 번째 동산으로 이주해 간 뒤로도 이 적대감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리고 그의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의” 적대감이 강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제 6 장.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아담은 낯-사람들이 진군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멜키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에게 조언하기를 거절하였고,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어떤 방향의 결정이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정 어린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멜키세덱들에게는 아담과 이브의 개인적인 계획에 간섭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

아담은 자기와 이브가 이미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멜키세덱 접수자들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지위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기로 맹세한 1,200명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밤새워 회의를 하였으며, 이 순례자들은 다음 날 정오에 새로운 보급자리를 찾아서 에덴을 떠났다. 아담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낯-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동산을 순순히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에덴의 카라반 여행자들은 동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예루셈으로부터 세라핌천사 운송자들의 도착으로 인하여 길을 멈추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운송자들이 서 있는 동안,

spiritual sorrow. No feature of their subsequent deprivations and material hardships ever began to compare in Eve's memory with those terrible days and awful nights of loneliness and unbearable uncertainty. She learned of the rash act of Serapatatia and did not know whether her mate had in sorrow destroyed himself or had been removed from the world in retribution for her misstep. And when Adam returned, Eve experienced a satisfaction of joy and gratitude that never was effaced by their long and difficult life partnership of toiling service.

75:5.8 (844.1) Time passed, but Adam was not certain of the nature of their offense until seventy days after the default of Eve, when the Melchizedek receivers returned to Urantia and assumed jurisdiction over world affairs. And then he knew they had failed.

75:5.9 (844.2) But still more trouble was brewing: The news of the annihilation of the Nodite settlement near Eden was not slow in reaching the home tribes of Serapatatia to the north, and presently a great host was assembling to march on the Garden.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a long and bitter warfare between the Adamites and the Nodites, for these hostilities kept up long after Adam and his followers emigrated to the second garden in the Euphrates valley. There was intense and lasting “enmity between that man and the woman, between his seed and her seed.”

6. ADAM AND EVE LEAVE THE GARDEN

75:6.1 (844.3) When Adam learned that the Nodites were on the march, he sought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but they refused to advise him, only telling him to do as he thought best and promising their friendly co-operation, as far as possible, in any course he might decide upon. The Melchizedeks had been forbidden to interfere with the personal plans of Adam and Eve.

75:6.2 (844.4) Adam knew that he and Eve had failed; the presen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told him that, though he still knew nothing of their personal status or future fate. He held an all-night conference with some twelve hundred loyal followers who pledged themselves to follow their leader, and the next day at noon these pilgrims went forth from Eden in quest of new homes. Adam had no liking for war and accordingly elected to leave the first garden to the Nodites unopposed.

75:6.3 (844.5) The Edenic caravan was halted on the third day out from the Garden by the arrival of the seraphic transports from Jerusem. And for the first time Adam and Eve were informed of what was to become of their children. While the transports

선택할 나이(20세)가 된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놀라시아의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 중에서 3분의 2는 에덴시아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고, 약 3분의 1은 자기들의 부모들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들은 모두 에덴시아로 옮겨졌다. 이 물질아들과 딸이 그 자녀들과의 슬픈 이별의 장면을 보면서, 규칙을 어긴 자의 길이 고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담과 이브의 이 자손들은 현재 에덴시아에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여행할 준비를 하는 그들은 매우 슬픈 카라반 여행 대열이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토록 고귀한 희망을 품고 한 세계에 와서 성대하게 영접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불명예스럽게 에덴을 떠나야 했으며, 게다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도 전에 그들은 자식들의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제 7 장. 아담과 이브의 강등

에덴의 카라반들이 갈 길을 멈추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과오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의 운명에 관한 충고도 들었다. 가브리엘이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러하였다: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는 불이행을 범하였으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신탁통치의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선고한다.

죄책감으로 침울해 있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우주 정부를 모욕한 죄”에 참여하였다는 모든 혐의로부터는 방면된다는 구원자별 심판관들의 판결문을 듣고 기운을 크게 되찾았다. 그들은 반역죄에 해당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에덴의 부부는 그들이 자신들을 영역의 필사자의 지위로 하락시켰다는 것; 이후부터는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미래를 세상 종족들의 미래를 보살피면서, 유란시아의 남자와 여자로서 수행해야만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오래 전에, 그들을 가르친 강사들은 어떤 것이든, 신성한 계획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결과를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었다. 나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했었는데, 그들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행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이행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 또는 징벌로써 그들이 필사 육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물질아들들의 불멸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납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stood by, those children who had arrived at the age of choice (twenty years) were given the option of remaining on Urantia with their parents or of becoming wards of the Most Highs of Norlatiadek. Two thirds chose to go to Edentia; about one third elected to remain with their parents. All children of prechoice age were taken to Edentia. No one could have beheld the sorrowful parting of this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their children without realizing that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These offspring of Adam and Eve are now on Edentia; we do not know what disposition is to be made of them.

75:6.4 (844.6) It was a sad, sad caravan that prepared to journey on. Could anything have been more tragic! To have come to a world in such high hopes, to have been so auspiciously received, and then to go forth in disgrace from Eden, only to lose more than three fourths of their children even before finding a new abiding place!

7. DEGRADATION OF ADAM AND EVE

75:7.1 (845.1) It was while the Edenic caravan was halted that Adam and Eve were informed of the nature of their transgressions and advised concerning their fate. Gabriel appeared to pronounce judgment. And this was the verdict: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are adjudged in default; they have violated the covenant of their trusteeship as the rulers of this inhabited world.

75:7.2 (845.2) While downcast by the sense of guilt, Adam and Eve were greatly cheered by the announcement that their judges on Salvington had absolved them from all charges of standing in “contempt of the universe government.” They had not been held guilty of rebellion.

75:7.3 (845.3) The Edenic pair were informed that they had degraded themselves to the status of the mortals of the realm; that they must henceforth conduct themselves as man and woman of Urantia, looking to the future of the world races for their future.

75:7.4 (845.4) Long before Adam and Eve left Jerusem, their instructors had fully explained to them the consequences of any vital departure from the divine plans. I had personally and repeatedly warned them, both before and after they arrived on Urantia, that reduction to the status of mortal flesh would be the certain result, the sure penalty, which would unfailingly attend default in the execution of their planetary mission. But a comprehension of the immortality status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s essential to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nsequences attendant upon the default of Adam and Eve.

1. 예루셈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영의 마음-중력 순환회로와 지적인 교류를 통해 불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생명 유지가 정신적 분리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면, 어떤 창조체라 할지라도, 영적 차원의 고향에 관계없이 불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육체적인 괴멸 과정이 뒤따라오는 필사자 지위는, 아담과 이브의 지적(知的)인 불이행에서 연유한,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2. 유란시아의 물질아들과 딸, 이 세계의 필사자 육신의 동일한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개인성구현화된 존재는, 이원적(二元的) 순환계의 유지를 위해 두 가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신체적 본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실에 저장되어 있는 초(超)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보호관리자 천사장은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신뢰에 대한 불이행은 결국 지위의 퇴보를 가져오리라는 사실과, 그들의 불이행에 뒤따라서 에너지의 원천에의 접근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환기 시켜왔었다.

칼리가스티아는 아담과 이브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하였지만, 우주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던 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사실 악(惡)이었지만, 진리를 모독하는 죄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우주 아버지와 그의 창조자 아들의 의로운 다스림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적으로 동조하지도 않았다.

75:7.5 (845.5) 1. Adam and Eve, like their fellows on Jerusalem, maintained immortal status through intellectual association with the mind-gravity circuit of the Spirit. When this vital sustenance is broken by mental disjunction, then, regardless of the spiritual level of creature existence, immortality status is lost. Mortal status followed by physical dissolution wa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intellectual default of Adam and Eve.

75:7.6 (845.6) 2. The Material Son and Daughter of Urantia, being also personalized in the similitude of the mortal flesh of this world, were further dependent on the maintenance of a dual circulatory system, the one derived from their physical natures, the other from the superenergy stored in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Always had the archangel custodian admonished Adam and Eve that default of trust would culminate in degradation of status, and access to this source of energy was denied them subsequent to their default.

75:7.7 (845.7) Caligastia did succeed in trapping Adam and Eve, but he did not accomplish his purpose of leading them into open rebellion against the universe government. What they had done was indeed evil, but they were never guilty of contempt for truth, neither did they knowingly enlist in rebellion against the righteous rul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Creator Son.

제 8 장. 이른바 사람의 타락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관계라는 높은 지위에서 필사 사람이라는 낮은 지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타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의-불이행의 즉각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간 종족은 계속 향상되어오고 있다. 유란시아에 보라색 종족을 번성케 하려는 신성한 계획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필사자 종족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유란시아에 미친 한정된 기여 덕분에 여전히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사람의 타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종족의 역사는 점진적인 진화들 중의 하나이며, 아담의-중여는 세계 민족들을 그 이전의 생물학적 조건으로부터 크게 개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유란시아의 좀 더 우월한 혈통들은 지금 가장 많게는 네 가지 분리된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유전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곧 안돈-사람, 산직, 낫-사람 그리고 아담의-요소들이다.

아담이 인간 종족을 저주받게 한 원인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가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고 신(神)과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그와 그의 반려자가 창조체의 지위로 가장 명백하게 강등되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인간 종족에게 기여한 그들의 공헌은 지대한 것이다.

8. THE SO-CALLED FALL OF MAN

75:8.1 (845.8) Adam and Eve did fall from their high estate of material sonship down to the lowly status of mortal man. But that was not the fall of man. The human race has been uplifted despite the immediate consequences of the Adamic default. Although the divine plan of giving the violet race to the Urantia peoples miscarried, the mortal races have profited enormously from the limited contribution which Adam and his descendants made to the Urantia races.

75:8.2 (846.1) There has been no “fall of ma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is one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the Adamic bestowal left the world peoples greatly improved over their previous biologic condition. The more superior stocks of Urantia now contain inheritance factors derived from as many as four separate sources: Andonite, Sangik, Nodite, and Adamic.

75:8.3 (846.2) Adam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cause of a curse on the human race. While he did fail in carrying forward the divine plan, while he did transgress his covenant with Deity, while he and his mate were most certainly degraded in creature status, notwithstanding all this, their contribution to the human race did much to advance civilization

너희의 세계에서 아담의-임무가 이룬 결과를 공의(公義)로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성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담이 그의 아름다운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에서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행성으로 이동되었을 때, 그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그들의 협조자들의 조언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었고,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졌었다면 결국에는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개인적인 해방과 행동에서의 행성적 자유를 주창하는 교활한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아들관계의 물질적 계층의 생명 원형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유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행성영주의 참모진에게 한 때 부속되었던 재(再)생산된 존재들의 것과 그 전에 이미 혼합되었던, 기원적 생명운반자들이 설계하여 그 당시에 병합되었던 것과 이 생명 위탁물이 너무 조급하게 섞이도록 허락하였다.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리고 신성한 계획을 너희가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름길로, 개인적인 발명으로, 또는 다른 방편을 사용하여, 완전의, 완전성에 이르는 그리고 영원한 완전을 향한 길에서 교묘하게 돌아 가 보려는 참을성 없는 시도로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너희의 모든 여정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네바돈 전역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도 이처럼 가슴 아픈 지혜의 오용(誤用)은 아마도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족들이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련사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만사가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완전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 완전이 우리의 기원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기계적인 우주였다면, 만약 첫째 근원이며 중심이 단지 하나의 기세였다면, 또한 하나의 개인성이 아니었다면, 만약 모든 창조계가 불변하는 에너지 활동들로 특징 지워지는 정교한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 물리적 물질의 광대한 집합이었다면, 비록 우주 지위가 미완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완전이 지배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 어떤 의견 차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마찰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완전이고 그리고 불완전의 진화하고 있는 우리의 우주 안에서, 우리는 의견 차이와 오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향유하는데, 이는 그것으로서 우주 안에 개인성의 사실과 행동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계가 만약에 개인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하나의 실존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개인성 생존, 진보, 그리고 성취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성 성장, 체험 그리고 모험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주 안에,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아니 나아가 수동적으로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개인적이고 진보적인 것이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주일가!

on Urantia.

75:8.4 (846.3) In estimating the results of the Adamic mission on your world, justice demands the recognition of the condition of the planet. Adam was confronted with a well-nigh hopeless task when, with his beautiful mate, he was transported from Jerusem to this dark and confused planet. But had they been guided by the counsel of the Melchizedeks and their associates, and *had they been more patient*, they would have eventually met with success. But Eve listened to the insidious propaganda of personal liberty and planetary freedom of action. She was led to experiment with the life plasm of the material order of sonship in that she allowed this life trust to become prematurely commingled with that of the then mixed order of the original design of the Life Carriers which had been previously combined with that of the reproducing beings once attached to the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75:8.5 (846.4) Never, in all your ascent to Paradise, will you gain anything by impatiently attempting to circumvent the established and divine plan by short cuts, personal inventions, or other devices for improving on the way of perfection, to perfection, and for eternal perfection.

75:8.6 (846.5) All in all, there probably never was a more disheartening miscarriage of wisdom on any planet in all Nebadon. But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se missteps occur in the affair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We are a part of a gigantic creation, and it is not strange that everything does not work in perfection; our universe was not created in perfection. Perfection is our eternal goal, not our origin.

75:8.7 (846.6) If this were a mechanistic universe, i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were only a force and not also a personality, if all creation were a vast aggregation of physical matter dominated by precise laws characterized by unvarying energy actions, then might perfection obtain, even despite the incompleteness of universe status. There would be no disagreement; there would be no friction. But in our evolving universe of relative perfection and imperfection we rejoice that disagreement and misunderstanding are possible, for thereby is evidenced the fact and the act of personality in the universe. And if our creation is an existence dominated by personality, then can you be assured of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ity survival, advancement, and achievement; we can be confident of personality growth, experience, and adventure. What a glorious universe, in that it is personal and progressive, not merely mechanical or even passively perfect!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75:8.8 (846.7)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 76 편 두 번째 동산

⇨ 075

유랜시아 책

07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6 편 두 번째 동산

섹션

소개

- 제 1 장. 에덴-사람들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제 2 장. 카인과 아벨
제 3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
제 4 장. 보라색 인종
제 5 장. 아담과 이브의 죽음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생존

PAPER 76

THE SECOND GARDE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denites Enter Mesopotamia
2. Cain and Abel
3. Life in Mesopotamia
4. The Violet Race
5. Death of Adam and Eve
6. Survival of Adam and Eve

소개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낯-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넘겨주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무리들은 서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에덴-사람들은 그러한 해양(海洋) 모험을 하기에 적당한 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북쪽의 낯-사람들은 이미 에덴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지역의 산들에는 적대적인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직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은 동쪽 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목초지를 향해 그 당시에 살기 좋은 지역인 동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에 남아 있던 사람들 대부분도 훗날 동쪽으로 찾아와서 그들의 새로운 고향인 보금자리에서 아담-사람들과 다시 합류하였다.

카인과 산사는 둘 모두 아담의-카라반들이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오타는 딸을 해산하다가 죽었다. 이브도 무척 산고(産苦)를 겪었지만 우월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브는 라오타의 아이인 산사를 자기 품안으로 받아들여서 카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능력을 소유한 여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녀는 북방에 있는 청색 인종의 족장인 사르간의 아내가 되어 그 당시의 청색 인종들의 진보에 기여하였다.

INTRODUCTION

76:0.1 (847.1) WHEN Adam elected to leave the first garden to the Nodites unopposed, he and his followers could not go west, for the Edenites had no boats suitable for such a marine adventure. They could not go north; the northern Nodites were already on the march toward Eden. They feared to go south; the hills of that region were infested with hostile tribes. The only way open was to the east, and so they journeyed eastward toward the then pleasant regions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many of those who were left behind later journeyed eastward to join the Adamites in their new valley home.

76:0.2 (847.2) Cain and Sansa were both born before the Adamic caravan had reached its destination between the rivers in Mesopotamia. Laotta, the mother of Sansa, perished at the birth of her daughter; Eve suffered much but survived, owing to superior strength. Eve took Sansa, the child of Laotta, to her bosom, and she was reared along with Cain. Sansa grew up to be a woman of great ability. She became the wife of Sargan, the chief of the northern blue races, and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he blue men of those times.

제 1 장. 에덴-사람들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아담의 카라반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달하는 데에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도착하였을 때는 홍수기였으므로 그들은 강 왼쪽 평원에 천막을 치고 거의 6주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동산이 될, 강 사이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동산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동산의 왕(王)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동쪽 산들로 도망갔다. 아담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지역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역에서 아담과 그의 조력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 중심지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담은 이 지역이 전에 반과 아마돈이 주축이 되어 동산을 준비할 때 동산의 임지로 추천되었던 세 지역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두 강들은 그 자체가 천연적인 방어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서로 가까이 근접하였기 때문에 56마일에 달하는 방어벽이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쪽에 그리고 그 강들 사이에 건설하기만 하면 되었다.

새로운 에덴에 정착한 뒤로 원시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땅이 저주받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한 번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아담-사람들은 개간되지 않은 토양에서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필사자 실존에서 적대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자연에 직면하면서, 삶의 실체들에 대처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첫 번째 동산은 부분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동산은 그들의 손이 일하여 “얼굴의 땀”속에서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2 장. 카인과 아벨

카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못되어 아벨이 태어났으며,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이었다. 아벨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목동이 되기로 선택하였다; 카인은 이미 농사짓기를 선택하였다.

당시에는 소산물을 사제에게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다. 목동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가져왔고 농부들은 들판의 열매들을 갖고 왔으며; 이 관습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절기마다 소산물을 제공했다. 두 소년은 여러 번 자기 직업이 더 좋다는 논쟁을 벌였고, 아벨은 자

1. THE EDENITES ENTER MESOPOTAMIA

76:1.1 (847.3) It required almost a full year for the caravan of Adam to reach the Euphrates River. Finding it in flood tide, they remained camped on the plains west of the stream almost six weeks before they made their way across to the land between the rivers which was to become the second garden.

76:1.2 (847.4) When word had reached the dwellers in the land of the second garden that the king and high priest of the Garden of Eden was marching on them, they had fled in haste to the eastern mountains. Adam found all of the desired territory vacated when he arrived. And here in this new location Adam and his helpers set themselves to work to build new homes and establish a new center of culture and religion.

76:1.3 (847.5) This site was known to Adam as one of the three original selections of the committee assigned to choose possible locations for the Garden proposed by Van and Amadon. The two rivers themselves were a good natural defense in those days, and a short way north of the second garden the Euphrates and Tigris came close together so that a defense wall extending fifty-six miles could be built for the protection of the territory to the south and between the rivers.

76:1.4 (847.6) After getting settled in the new Eden, it became necessary to adopt crude methods of living; it seemed entirely true that the ground had been cursed. Nature was once again taking its course. Now were the Adamites compelled to wrest a living from unprepared soil and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life in the face of the natural hostilities and incompatibilities of mortal existence. They found the first garden partially prepared for them, but the second had to be created by the labor of their own hands and in the “sweat of their faces.”

2. CAIN AND ABEL

76:2.1 (848.1) Less than two years after Cain's birth, Abel was born, the first child of Adam and Eve to be born in the second garden. When Abel grew up to the age of twelve years, he elected to be a herder; Cain had chosen to follow agriculture.

76:2.2 (848.2) Now, in those days it was customary to make offerings to the priesthood of the things at hand. Herders would bring of their flocks, farmers of the fruits of the field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ustom, Cain and Abel likewise made periodic offerings to the priests. The two boys had many

신의 동물 희생제물이 더욱 좋은 것임을 언급하는 데에 참을성이 없었다. 카인은 첫 번째 에덴의 전통으로 들판의 열매들을 제공했다는 선례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에 수긍하지 않았고 자신의 형이 곤혹스러워할 때마다 비웃었다.

첫 번째 에덴 시절에 동물로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관습을 없애려고 아담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카인은 자신의 주장에 정당한 선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덴에서 종교 생활을 조직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아담은 건축, 국방, 농업 등이 연관된 수많은 세부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첫 번째 동산에서 이런 분야에서 일했던 낯-사람 출신의 사람들에게 경배와 교육의 조직체를 일임하고 있었다; 집례(集禮)하는 낯-사람 사제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아담의-이전 시대 기준과 규칙들로 돌아가게 되었다.

두 소년은 한 번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으며, 희생 제물에 관한 이 문제로 그들 사이에 증오의 싹이 자라났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카인에게 그가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카인의 아버지는 청색과 홍색 인종의 후기 혼혈이며 안돈의-후손 토착민 형질도 섞인 낯-사람 종족으로서, 순수한 보라색 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본성적 호전성이 상속된, 카인에게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 갔다.

그들이 각각 18세와 20세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긴장은 결국 끝장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벨이 자기 형을 조롱하자, 카인은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그를 죽이게 되었다.

아벨의 행위성을 관찰해 볼 때 환경과 교육이 성격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시사해 준다. 아벨은 그의 모든 성격 저변에 이상적인 유전자와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이 훌륭한 기질을 중화시켜 버렸다. 아벨은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 동안 좋지 않은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가 25세나 30세까지 살았다면, 그는 아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의 훌륭한 유전자가 결국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 비천한 유전자의 성격적 결함을 극복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나쁜 환경은 뛰어난 유전자를 매우 효과적으로 망칠 수가 있으며, 적어도 어린 시절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좋은 사회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산을 최대한 발휘시키는데 필수적인 토양과 공기가 되는 것이다.

아벨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담과 이브는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 아담과 이브에게 있어서, 카인은 빠르게

times argued about the relative merits of their vocations, and Abel was not slow to note that preference was shown for his animal sacrifices. In vain did Cain appeal to the traditions of the first Eden, to the former preference for the fruits of the fields. But this Abel would not allow, and he taunted his older brother in his discomfiture.

76:2.3 (848.3) In the days of the first Eden, Adam had indeed sought to discourage the offering of animal sacrifice so that Cain had a justifiable precedent for his contentions. It was, however, difficult to organize the religious life of the second Eden. Adam was burdened with a thousand and one details associated with the work of building, defense, and agriculture. Being much depressed spiritually, he intrusted the organization of worship and education to those of Nodite extraction who had served in these capacities in the first garden; and in even so short a time the officiating Nodite priests were reverting to the standards and rulings of pre-Adamic times.

76:2.4 (848.4) The two boys never got along well, and this matter of sacrifices further contributed to the growing hatred between them. Abel knew he was the son of both Adam and Eve and never failed to impress upon Cain that Adam was not his father. Cain was not pure violet as his father was of the Nodite race later admixed with the blue and the red man and with the aboriginal Andonic stock. And all of this, with Cain's natural bellicose inheritance, caused him to nourish an ever-increasing hatred for his younger brother.

76:2.5 (848.5) The boys were respectively eighteen and twenty years of age when the tension between them was finally resolved, one day, when Abel's taunts so infuriated his bellicose brother that Cain turned upon him in wrath and slew him.

76:2.6 (848.6) The observation of Abel's conduct establishes the value of environment and education as factors in character development. Abel had an ideal inheritance, and heredity lies at the bottom of all character; but the influence of an inferior environment virtually neutralized this magnificent inheritance. Abel, especially during his younger years,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unfavorable surroundings. He would have become an entirely different person had he lived to be twenty-five or thirty; his superb inheritance would then have shown itself. While a good environment cannot contribute much toward really overcoming the character handicaps of a base heredity, a bad environment can very effectively spoil an excellent inheritance, at least during the younger years of life. Good social environment and proper education are indispensable soil and atmosphere for getting the most out of a good inheritance.

76:2.7 (849.1) The death of Abel became known to his parents when his dogs brought the flocks home without their master. To Adam and Eve, Cain was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냉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스스로 동산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복돋아 주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카인의 삶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불이행의 상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불친절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의 현존에 대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카인은 어떤 종족의 표시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을 떠나면 우연하게 만나는 첫 번째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공포와 자책으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그 때까지 카인에게는 조절자가 내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항상 가족 단련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브를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과 인도를 부탁하였고, 그가 정직하게 신성한 도움을 구했을 때, 조절자가 그에게 내주하였다. 그리고 내주하면서 내다보는 이 조절자는 카인에게 우월성에서의 뚜렷한 장점을 주었고, 이것이 그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담 부족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카인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낫의 땅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느리던 사람들의 한 집단을 만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으며, 세라파타샤의 예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카인은 일생을 통해서 낫-사람과 아담-사람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카인은 자신의 먼 친족인 레모나와 결혼해서 아들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엘람에 사는 낫-사람들의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엘람 사람들과 아담-사람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었다.

제 3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

두 번째 동산에서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불이행의 결과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떠난 자기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자신들의 이전(以前) 집을 무척 그리워하였다. 그토록 고상한 존재들이 물질계의 일반 육체로 전락해 있는 것을 지켜보기란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락된 지위를 은총과 감사로 받아들이었다.

아담은 자신의 자녀들과 연관-동료들에게 관리-행정과 교육 방법론들과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헌명하게 보냈다. 이러한 예지력이 없었다면 그가 죽은 뒤에는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사람들의 관련자들의 행위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은 자식들과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광스런 나날들을 점차로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에덴의 훌륭한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전보다 덜

fast becoming the grim reminder of their folly, and they encouraged him in his decision to leave the garden.

76:2.8 (849.2) Cain's life in Mesopotamia had not been exactly happy since he was in such a peculiar way symbolic of the default. It was not that his associates were unkind to him, but he had not been unaware of their subconscious resentment of his presence. But Cain knew that, since he bore no tribal mark, he would be killed by the first neighboring tribesmen who might chance to meet him. Fear, and some remorse, led him to repent. Cain had never been indwelt by an Adjuster, had always been defiant of the family discipline and disdainful of his father's religion. But he now went to Eve, his mother, and asked for spiritual help and guidance, and when he honestly sought divine assistance, an Adjuster indwelt him. And this Adjuster, dwelling within and looking out, gave Cain a distinct advantage of superiority which classed him with the greatly feared tribe of Adam.

76:2.9 (849.3) And so Cain departed for the land of Nod, east of the second Eden. He became a great leader among one group of his father's people and did, to a certain degree, fulfill the predictions of Serapatatia, for he did promote peace between this division of the Nodites and the Adamites throughout his lifetime. Cain married Remona, his distant cousin, and their first son, Enoch, became the head of the Elamite Nodites. And for hundreds of years the Elamites and the Adamites continued to be at peace.

3. LIFE IN MESOPOTAMIA

76:3.1 (849.4) As time passed in the second garden, the consequences of default became increasingly apparent. Adam and Eve greatly missed their former home of beauty and tranquillity as well as their children who had been deported to Edentia. It was indeed pathetic to observe this magnificent couple reduced to the status of the common flesh of the realm; but they bore their diminished estate with grace and fortitude.

76:3.2 (849.5) Adam wisely spent most of the time training his children and their associates in civil administration, educational methods, and religious devotions. Had it not been for this foresight, pandemonium would have broken loose upon his death. As it was, the death of Adam made little differenc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his people. But long before Adam and Eve passed away, they recognized that their children and followers had gradually learned to forget the days of their glory in Eden. And it was better for the majority of their followers that they did forget the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비교적 불만족스러움을 덜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담-사람의 행정 통치자들은 첫 번째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적으로 유래되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아담아들(아담의 아들)은 두 번째 동산의 북쪽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두 번째 에텐을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선도 훌륭한 영도자이자 행정-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큰 조력자였다. 그는 아담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인 안사드가 아담-사람 종족들의 수장으로서 아담의 후계자가 되었다.

종교적 통치자들이나 사제신분은 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생존한 아들들 중에서는 맏아들로써,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지 129년째 해에 태어났다. 셋은 자기 아버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하여 두 번째 동산에서 결성된 새 사제들의 수장이 되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경배의 순서를 만들었고, 그의 손자 케난은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가깝고도 먼 부족들에 대한 대외 선교사 봉사를 제정 했다.

셋 자손 사제들은 세 가지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들은 종교와 건강과 교육이었다. 이 계층의 사제들은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와 위생 검열자의 역할과 동산의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아담 카라반들은 첫 번째 동산에서 수백 가지 식물의 씨앗과 뿌리들을 이 두 강 사이에 놓여있는 땅으로 가져왔으며; 또한 그들은 많은 소 떼들과 모든 종류의 길들여진 동물들 중 일부도 데리고 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능가하는 큰 이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기원적 동산에 있었던 이전의 문화에서 비롯된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

첫 번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항상 과일, 곡류, 견과류 등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약초와 채소류를 먹었다. 두 번째 동산에 들어온 초기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아담아들과 이브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일세(一世)들의 아이들까지도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다.

아담-사람들은 문명적 성취와 지적 발전에 있어서 주위 부족들을 크게 앞서게 하였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어냈고 현대적 예술, 과학, 문학의 선구자적인 기초들을 정립하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땅에서 문자와 금속공예와 도예와 직조술을 유지하였고, 어떤 종류의 고안건축 양식을 개발했는데, 그 이후 몇 천 년 동안이나 그 보다 나은 건축 방식은 나

grandeur of Eden; they were not so likely to experience undue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ss fortunate environment.

76:3.3 (849.6) The civil rulers of the Adamites were derived hereditarily from the sons of the first garden. Adam's first son, Adamson (Adam ben Adam), founded a secondary center of the violet race to the north of the second Eden. Adam's second son, Eveson, became a masterly leader and administrator; he was the great helper of his father. Eveson lived not quite so long as Adam, and his eldest son, Jansad, became the successor of Adam as the head of the Adamite tribes.

76:3.4 (849.7) The religious rulers, or priesthood, originated with Seth, the eldest surviving son of Adam and Eve born in the second garden. He was born one hundred and twenty-nine years after Adam's arrival on Urantia. Seth became absorbed in the work of improving the spiritual status of his father's people, becoming the head of the new priesthood of the second garden. His son, Enos, founded the new order of worship, and his grandson, Kenan, instituted the foreign missionary service to the surrounding tribes, near and far.

76:3.5 (850.1) The Sethite priesthood was a threefold undertaking, embracing religion, health, and education. The priests of this order were trained to officiate at religious ceremonies, to serve as physicians and sanitary inspectors, and to act as teachers in the schools of the garden.

76:3.6 (850.2) Adam's caravan had carried the seeds and bulbs of hundreds of plants and cereals of the first garden with them to the land between the rivers; they also had brought along extensive herds and some of all the domesticated animals. Because of this they possessed great advantages over the surrounding tribes. They enjoyed many of the benefits of the previous culture of the original Garden.

76:3.7 (850.3) Up to the time of leaving the first garden, Adam and his family had always subsisted on fruits, cereals, and nuts. On the way to Mesopotamia they had, for the first time, partaken of herbs and vegetables. The eating of meat was early introduced into the second garden, but Adam and Eve never partook of flesh as a part of their regular diet. Neither did Adamson nor Eveson nor the other children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first garden become flesh eaters.

76:3.8 (850.4) The Adamites greatly excelled the surrounding peoples in cultural achievement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They produced the third alphabet and otherwise laid the foundations for much that was the forerunner of modern art, science, and literature. Here in the lands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they maintained the arts of writing, metalworking, pottery making, and

오지 않았다.

보라색 인종의 가정생활은 그들의 시대와 시기에 맞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항해술, 그리고 동물 사육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셋 자손으로서의 세 가지 임무인: 사제와 의사와 선생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셋 자손 사제들을 생각할 때, 고상하고 고양된 마음을 지닌 위생과 종교 교사들이었으며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들이었던 그들을 후세의 부족이나 인접한 국가들에 존재했던 타락하고 상업적인 사제들과 혼동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신(神)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들은 성숙되어 있었고 대체로 정확하였고, 그들의 위생 설비도 그 시대로서는 탁월하였으며, 교육 방식은 그 이후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제 4 장. 보라색 인종

아담과 이브는 유란시아에서 9번째로 나타난 사람 종족인 보라색 종족 인간들의 시조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그리고 보라색 민족들은 하얀 피부와 밝은 머리카락 색깔—노란 색, 붉은 색, 그리고 갈색—이 특징이었다.

이브는 출산하는데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의 진화 인종들 역시 그러하였다. 오직 낯-사람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사람들과 진화하는 사람의 연합에 의하여 산출된 혼혈 인종들만이,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처럼 이원적(二元的) 영양 보충 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음식과 빛,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초(超)물리적 에너지, 둘 모두로부터 보충했다. 그들의 유란시아 자손들은 에너지 흡수와 빛 순환 회로의 자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단일 순환회로, 혈액 순환회로의 인간 유형을 가졌다. 그들은 비록 장수함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 평균에 가까워지긴 했어도, 오래-살았고, 그렇지만 필사자로 고안되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제 1 세대에서는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의 실과들만으로 살았다. 그러나 제 1세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우유제품을 먹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육식을 하지 않는 관습을 따랐다. 그들이 후에 연합한 남쪽의 부족 역시 많은 수가 육식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채식 부족의 대부분은 동쪽으로 이주해갔는데 그들의 후예들은 현재의 인도인들과 섞이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신체적 영적 통찰력은 지금-현재 민족들의 그것보다 우월하였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들은 매우 예민했으며 그들은 중도자들, 천사

weaving and produced a type of architecture that was not excelled in thousands of years.

76:3.9 (850.5) The home life of the violet peoples was, for their day and age, ideal. Children were subjected to courses of training in agriculture, craftsmanship, and animal husbandry or else were educated to perform the threefold duty of a Sethite: to be priest, physician, and teacher.

76:3.10 (850.6) And when thinking of the Sethite priesthood, do not confuse those high-minded and noble teachers of health and religion, those true educators, with the debased and commercial priesthoods of the later tribes and surrounding nations. Their religious concepts of Deity and the universe were advanced and more or less accurate, their health provisions were, for their time, excellent, and their methods of education have never since been surpassed.

4. THE VIOLET RACE

76:4.1 (850.7) Adam and Eve were the founders of the violet race of men, the ninth human race to appear on Urantia. Adam and his offspring had blue eyes, and the violet peoples were characterized by fair complexions and light hair color — yellow, red, and brown.

76:4.2 (850.8) Eve did not suffer pain in childbirth; neither did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nly the mixed races produced by the union of evolutionary man with the Nodites and later with the Adamites suffered the severe pangs of childbirth.

76:4.3 (851.1) Adam and Eve, like their brethren on Jerusem, were energized by dual nutrition, subsisting on both food and light, supplemented by certain superphysical energies unrevealed on Urantia. Their Urantia offspring did not inherit the parental endowment of energy intake and light circulation. They had a single circulation, the human type of blood sustenance. They were designedly mortal though long-lived, albeit longevity gravitated toward the human norm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76:4.4 (851.2) Adam and Eve and their first generation of children did not use the flesh of animals for food. They subsisted wholly upon “the fruits of the trees.” After the first generation all of the descendants of Adam began to partake of dairy products, but many of them continued to follow a nonflesh diet. Many of the southern tribes with whom they later united were also nonflesh eaters. Later on, most of these vegetarian tribes migrated to the east and survived as now admixed in the peoples of India.

76:4.5 (851.3) Both the physical and spiritual visions of Adam and Eve were far superior to those of the present-day peoples. Their special senses were

의 무리들, 뿔기세덱들, 타락한 칼리가스티아 영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칼리가스티아는 자신의 고귀한 후임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여러 번 왔었다. 아담과 이브는 불이행을 저지른 뒤 백년 이상 동안에도 이 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 특수한 감각들은 자식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아담의-자녀들에게는 대개 조절자들이 내주하였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확실한 생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우월한 자손들은 진화의 자손들과는 달리 두려움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현재 유란시아 인종들은 많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인종적 신체 향상을 위한 계획이 초기에 실패함에 따라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질아들들의 몸 세포와 그들의 자녀들은, 형성에 토착적인 진화하는 존재들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했다. 태생적 종족의 몸 세포들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영역의 미생물이나 극미생물 유기체와, 친족이다. 이 사실이 왜 유란시아 사람들이 많은 육체적 질환들을 견디기 위해 그토록 과학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가 만약 너희들 속에 아담의-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질병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유프라테스 지역에 두 번째 동산을 세운 후에, 아담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브는 인종 개량 12인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1,682명의 가장 뛰어난 유란시아 여인들을 뽑았고, 이 여인들에게 아담의-생명 원형질을 이식 받게 하였다. 그들의 아이들은 112명을 빼고 모두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1,570명의 우월한 남녀가 나오게 되는 혜택을 입었다. 비록 이 후보 어머니들은 주위의 모든 부족에서 뽑혀 왔으며 지상의 거의 모든 종족들을 대표한다고 했지만, 다수의 후보자들은 낯-사람의 가장 뛰어난 종족들로부터 뽑혀졌고, 그들은 강한 안드-사람 종족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이 아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머니들의 부족들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었다.

제 5 장. 아담과 이브의 죽음

두 번째 에덴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뉘우침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필사자의 숙명을 참아내도록 처지가 정해졌으며, 또한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다는

much more acute, and they were able to see the midwayers and the angelic hosts, the Melchizedeks, and the fallen Prince Caligastia, who several times came to confer with his noble successor. They retained the ability to see these celestial beings for over one hundred years after the default. These special senses were not so acutely present in their children and tended to diminish with each succeeding generation.

76:4.6 (851.4) The Adamic children were usually Adjuster indwelt since they all possessed undoubted survival capacity. These superior offspring were not so subject to fear as the children of evolution. So much of fear persists in the present-day races of Urantia because your ancestors received so little of Adam's life plasm, owing to the early miscarriage of the plans for racial physical uplift.

76:4.7 (851.5) The body cells of the Material Sons and their progeny are far more resistant to disease than are those of the evolutionary beings indigenous to the planet. The body cells of the native races are akin to the living disease-producing microscopic and ultramicroscopic organisms of the realm. These facts explain why the Urantia peoples must do so much by way of scientific effort to withstand so many physical disorders. You would be far more disease resistant if your races carried more of the Adamic life.

76:4.8 (851.6) After becoming established in the second garden on the Euphrates, Adam elected to leave behind as much of his life plasm as possible to benefit the world after his death. Accordingly, Eve was made the head of a commission of twelve on race improvement, and before Adam died this commission had selected 1,682 of the highest type of women on Urantia, and these women were impregnated with the Adamic life plasm. Their children all grew up to maturity except 112, so that the world, in this way, was benefited by the addition of 1,570 superior men and women. Though these candidate mothers were selected from all the surrounding tribes and represented most of the races on earth, the majority were chosen from the highest strains of the Nodites, and they constituted the early beginnings of the mighty Andite race. These children were born and reared in the tribal surroundings of their respective mothers.

5. DEATH OF ADAM AND EVE

76:5.1 (851.7) Not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Eden, Adam and Eve were duly informed that their repentance was acceptable, and that, while they were doomed to suffer the fate of the mortals of their world, they should certainly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자신들에게 비장하게 선언한 부활과 명예회복의 이복음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의 위반은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의 죄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의 시민의 자격으로 있을 때에는 생각 조절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유란시아의 첫 번째 동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생각 조절자는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사자의 지위로 하락된 후 바로 얼마 후에 새로운 현존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지위는 진지한 뉘우침과 더불어 조절자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실현을 깨닫게 되었다. 조절자의 내주에 대한 이 인식은 아담과 이브에게 여생 동안의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질아들의 임무는 실패하였지만, 우주의 아들들의 자격으로써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여정이 아직도 자신들에게 열려있음을 알았다.

아담은 자기가 그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했던 섭리시대적인 부활에 관해서 알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행자는 아마도 아들관계의 다음 계층의 도착과 연결되어 다시 재(再)개인성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는 것은 몰랐다. 그는 다음 번 아들로 아보날 계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미가엘로부터 개인적인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들은, 어떤 것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항상 위안이 되었다. 그 기별은 우정과 위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는 그대들의 불이행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나는 그대들의 가슴 속에는 내 아버지의 의지에 충성하려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내 영역의 하급 아들들이 그 전에 그대들을 부르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내려갈 때 그대들을 필사자 수면에서 깨워 불러 주겠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겐 크나큰 신비였다. 그들은 이 기별 속에 특별한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나타나는 날과 연관되어 일어날 부활의 시점까지 그들이 휴식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덴의 부부는 하느님의 아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항상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아니면 적어도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이 큰 좌와 슬픔의 행성이 어찌면 우주의 통치자인 파라다이스 아들이 증여할 영역으로 선택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기에 너무나 굉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다투므로 분열된 유란시아가 어찌면 결국에는 전체 네바돈 행성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게 될, 사타니아 체계에서 가

become eligible for admission to the ranks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Urantia. They fully believed this gospel of resurrection and rehabilitation which the Melchizedeks so touchingly proclaimed to them. Their transgression had been an error of judgment and not the sin of conscious and deliberate rebellion.

76:5.2 (852.1) Adam and Eve did not, as citizens of Jerusalem, have Thought Adjusters, nor were they Adjuster indwelt when they functioned on Urantia in the first garden. But shortly after their reduction to mortal status they became conscious of a new presence within them and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 status coupled with sincere repentance had made it possible for Adjusters to indwell them. It was this knowledge of being Adjuster indwelt that greatly heartened Adam and Eve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they knew that they had failed as Material Sons of Satania, but they also knew that the Paradise career was still open to them as ascending sons of the universe.

76:5.3 (852.2) Adam knew about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which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his arrival on the planet, and he believed that he and his companion would probably be repersonalized in connection with the advent of the next order of sonship. He did not know that Michael, the sovereign of this universe, was so soon to appear on Urantia; he expected that the next Son to arrive would be of the Avonal order. Even so, it was always a comfort to Adam and Eve, as well as something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to ponder the only personal message they ever received from Michael. This message, among other expressions of friendship and comfort, said: “I have given consideration to the circumstances of your default, I have remembered the desire of your hearts ever to be loyal to my Father’s will, and you will be called from the embrace of mortal slumber when I come to Urantia if the subordinate Sons of my realm do not send for you before that time.”

76:5.4 (852.3) And this was a great mystery to Adam and Eve. They could comprehend the veiled promise of a possible special resurrection in this message, and such a possibility greatly cheered them, but they could not grasp the meaning of the intimation that they might rest until the time of a resurrection associated with Michael’s personal appearance on Urantia. And so the Edenic pair always proclaimed that a Son of God would sometime come, and they communicated to their loved ones the belief, at least the longing hope, that the world of their blunders and sorrows might possibly be the realm whereon the ruler of this universe would elect to function as the Paradise bestowal Son. It seemed too good to be true, but Adam did entertain the thought that strife-torn Urantia might, after all, turn out to be the most

장 운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담은 530년을 살았다. 그는 수명을 다한 늙은 나이로 인하여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적 기능구조가 낡아 버린 것이었다. 집대성-해체활동 과정이 고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따라잡았고, 필연적으로 끝이 왔다. 이브는 약해진 심장으로 인하여 아담보다 19년 전에 죽었다. 거류민단의 성벽이 완성된 바로 후에, 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성스러운 예배봉사 장소인 성전 중앙에, 그들은 같이 매장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독실한 남자나 여자를 경배할 지하에 매장하는 실천 관행의 기원이 되었다.

멜기세덱들의 지도 아래에서, 유란시아의 초물질적 정부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진화적 인종들과의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은 단절되었다. 먼 과거에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들이 도착한 때로부터, 반과 아마돈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까지, 우주 정부의 물리적인 대리자들이 이 행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5만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계속되어 온 이 정부는, 아담의-불이행로 인하여,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영적 구체들에서, 천사 조력자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협력하며 계속해서 개별존재의 생존을 위해 둘 모두 영웅적으로 투쟁해 왔지만; 그러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상의 필사자들에게는 멀리-퍼져있는 세계의 복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느님의 아들의 능력과 인내심과 권위를 가지고 불운한 유란시아의 더 나은 향상과 영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독 불운만이 유란시아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행성은 네바돈의 지역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행성이 되었다. 유란시아인 들은 그들 선조들의 과오와 초기에 왔던 세계 통치자들의 오류 때문에 혼란스러운 절망 상태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갈수록 악과 죄에 의해 뒤죽박죽되었고 이러한 어두움은 네바돈 미가엘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 개인성을 계시하는 경기장으로 이 세계를 선택하셨다. 얽혀있는 관련자들의 질서를 위하여 유란시아가 창조자 아들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란시아의 악과 죄는 창조자 아들로 하여금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내는데 좀 더 강하게 대조가 되는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만한 곳이 되었던 것이다.

fortunate world in the system of Satania, the envied planet of all Nebadon.

76:5.5 (852.4) Adam lived for 530 years; he died of what might be termed old age. His physical mechanism simply wore out; the process of disintegration gradually gained on the process of repair, and the inevitable end came. Eve had died nineteen years previously of a weakened heart. They were both buried in the center of the temple of divine service which had been built in accordance with their plans soon after the wall of the colony had been completed.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practice of burying noted and pious men and women under the floors of the places of worship.

76:5.6 (852.5) The supermaterial government of Urantia, under the direction of the Melchizedeks, continued, but direct physical contact with the evolutionary races had been severed. From the distant days of the arrival of the corporeal staff of the Planetary Prince, down through the times of Van and Amadon to the arrival of Adam and Eve, physical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e government had been stationed on the planet. But with the Adamic default this regime, extending over a period of more than four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came to an end. In the spiritual spheres, angelic helpers continued to struggle in conjunc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s, both working heroically for the salvage of the individual; but no comprehensive plan for far-reaching world welfare was promulgated to the mortals of earth until the arrival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times of Abraham, who, with the power, patience, and authority of a Son of God, did lay the foundations for the further uplift and spiritual rehabilitation of unfortunate Urantia.

76:5.7 (853.1) Misfortune has not, however, been the sole lot of Urantia; this planet has also been the most fortunate in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Urantians should count it all gain if the blunders of their ancestors and the mistakes of their early world rulers so plunged the planet into such a hopeless state of confusion, all the more confounded by evil and sin, that this very background of darkness should so appeal to Michael of Nebadon that he selected this world as the arena wherein to reveal the loving personality of the Father in heaven. It is not that Urantia needed a Creator Son to set its tangled affairs in order; it is rather that the evil and sin on Urantia afforded the Creator Son a more striking background against which to reveal the matchless love, mercy, and patience of the Paradise Father.

제 6 장. 아담과 이브의 생존

아담과 이브는 언젠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나

6. SURVIVAL OF ADAM AND EVE

76:6.1 (853.2) Adam and Eve went to their mortal rest with strong faith in the promises made to them by

그들이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들의 물질적 육체 속에서 그들의 임무를 맡기 전에 그들에게 그렇게 친숙했던 맨션세계들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멜기세덱들이 그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강하게 믿으면서, 그들의 필사자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들은 영역의 필사자들이 겪는 무의식적 수면의 망각 속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3일째, 그의 존경이 담긴 매장이 행해진 이틀 후, 라나휘지 계층들은, 에덴시아의 대리 지고자들에 의해 승인되고 미가엘을 대항하는 구원자별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찬성을 받았는데,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불이행의 현저한 생존자들에 대한 특별 출석 점호를 지도하는, 가브리엘의 손에 맡겨졌다. 그리고 유란시아 계열들 중 26번인, 이 특별 부활의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동산을 체험한 그들의 1,316명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 중에 있는 부활의 공간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고 다시 모이게 되었다. 아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다른 충성스러운 혼들이 이미 전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잠자던 생존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분별화된 상승자들도, 둘 모두에 대한 섭리시대적 판결에 의해 수반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의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진화적 전진의 세계들을 빠르게 통과하였는데, 그들은 다시 한 번 그들의 기원 행성에서 거주민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우주적 개인성의 다른 계급의 일원의 자격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영구 시민들—하느님의 아들들—의 자격으로 예루셈을 떠났고 그리고는 진보하는 시민들—사람의 아들들—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 체계의 수도에서 유란시아를 돕는 봉사에 배정되었다. 나중에는 현재 유란시아의 자문-통제 기관을 구성하는 24명의 조언자들 중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란시아 행성의 아담과 이브의 시련과 비극과 승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그 승리는 적어도, 의도는 좋았지만 현혹된 물질아들과 딸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중독에 가서는, 그들의 세계와 반역으로 버림받고 악에 시달리던 거주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개인적 승리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이브는 인간 종족의 문명 발달을 가속시켰고 생물학적 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지상에 위대한 문명을 남겼다. 하지만 그토록 진보된 문명은 일찍 희석되고 결국에는 아담의-유산마저 침수되고 마는 운명을 직면했던 그곳에서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했었다. 문명을 이룩한 것은 그 사람들이었다; 문명이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

["동산의 음성" 세라핌천사인 솔로니아에 의해 제시되었음]

the Melchizedeks that they would sometime awake from the sleep of death to resume life on the mansion worlds, worlds all so familiar to them in the days preceding their mission in the material flesh of the violet race on Urantia.

76:6.2 (853.3) They did not long rest in the oblivion of the unconscious sleep of the mortals of the realm. On the third day after Adam's death, the second following his reverent burial, the orders of Lanaforge, sustained by the acting Most High of Edentia and concurred in by the Union of Days on Salvington, acting for Michael, were placed in Gabriel's hands, directing the special roll call of the distinguished survivors of the Adamic default on Urant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mandate of special resurrection, number twenty-six of the Urantia series, Adam and Eve were repersonalized and reassembled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together with 1,316 of their associates in the experience of the first garden. Many other loyal souls had already been translated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which was attended by a dispensational adjudication of both the sleeping survivors and of the living qualified ascenders.

76:6.3 (853.4) Adam and Eve quickly passed through the worlds of progressive ascension until they attained citizenship on Jerusem, once again to be residents of the planet of their origin but this time as members of a different order of universe personalities. They left Jerusem as permanent citizens — Sons of God; they returned as ascendant citizens — sons of man. They were immediately attached to the Urantia service on the system capital, later being assigned membership among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who constitute the present advisory-control body of Urantia.

76:6.4 (854.1) And thus ends the story of the Planetary Adam and Eve of Urantia, a story of trial, tragedy, and triumph, at least personal triumph for your well-meaning but deluded Material Son and Daughter and undoubtedly, in the end, a story of ultimate triumph for their world and its rebellion-tossed and evil-harassed inhabitants. When all is summed up, Adam and Eve made a mighty contribution to the speedy civilization and accelerated biologic progress of the human race. They left a great culture on earth, but it was not possible for such an advanced civilization to survive in the face of the early dilution and the eventual submergence of the Adamic inheritance. It is the people who make a civilization; civilization does not make the people.

76:6.5 (852.1) [Presented by Solonia, the seraphic "voice in the Garden."]

제 77 편 중도 창조체

⇨ 076

유랜시아 책

07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7 편 중도 창조체

색션

소개

- 제 1 장. 1차 중도자
- 제 2 장. 노트-사람 종족
- 제 3 장. 바벨 탑
- 제 4 장. 노트-사람들의 문명 중심지
- 제 5 장. 아담아들과 라타
- 제 6 장. 2차 중도자
- 제 7 장. 반란의 중도자
- 제 8 장. 연합된 중도자
- 제 9 장. 유란시아의 영구적인 시민

소개

네바돈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 대부분에는, 그 세계의 필사자들의 생명-기능과 천사들 계층의 생명-기능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독특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중도(中途) 창조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우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되었고 조력자로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들의 복합적인 행성 사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계층들 중의 하나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란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층의 중도자들이 기능하는데: 1차 또는 선임 무리단은 먼 옛날인 달라마시아 시대에 출현하였고, 2차 또는 보다 어린 집단은 아담의 시대에 기원되었다.

제 1 장. 1차 중도자

1차 중도자들은 유란시아에서 물질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존재들의 독특한 상호-연관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우리는 다른 세계들과 다른 체계들

PAPER 77

THE MIDWAY CREATURE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Primary Midwayers
- 2. The Nodite Race
- 3. The Tower of Babel
- 4. Nodite Centers of Civilization
- 5. Adamson and Ratta
- 6. The Secondary Midwayers
- 7. The Rebel Midwayers
- 8. The United Midwayers
- 9. The Permanent Citizens of Urantia

INTRODUCTION

77:0.1 (855.1)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of Nebadon harbor one or more groups of unique beings existing on a life-functioning level about midway between those of the mortals of the realms and of the angelic orders; hence are they called *midway* creatures. They appear to be an accident of time, but they occur so widely and are so valuable as helpers that we have all long since accepted them as one of the essential orders of our combined planetary ministry.

77:0.2 (855.2) On Urantia there function two distinct orders of midwayers: the primary or senior corps, who came into being back in the days of Dalamatia, and the secondary or younger group, whose origin dates from the times of Adam.

1. THE PRIMARY MIDWAYERS

77:1.1 (855.3) The primary midwayers have their genesis in a unique interassociation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on Urantia. We know of the

안에 있는 비슷한 창조체들의 실존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에 의해서 기원되었다.

진화하는 행성 위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연속적인 증여들은 그 세계의 영적 질서에 현저한 변화들을 초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행성 위에 있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대리자들의 상호-연관하는 활동들을 변형시켜서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100명의 육체를 입은 요원들의 지위는 바로 그러한 독특한 상호-연관을 나타내는 데: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시민들로서, 그들은 번식하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초물질적 창조체들이었다. 유란시아에서는 하강하는 행성 사명활동자로서, 그들은 물질적인 자손을(그들 중의 일부가 나중에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낳을 수 있는 물질적 성(性) 창조체들이었다. 우리들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100명의 존재들이 초(超)물질적 차원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일이 그대로 발생되었던 것이다. 유형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이 초물질적으로(성적(性的)이 아닌) 연락함으로써 처음으로 탄생된 1차 중도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계층에 속한 창조체들, 필사자 차원과 천사 차원 사이에 있는 중도 존재들이 영주의 본부에서 발생하는 관련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음이 즉각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유형 참모진 각 쌍은 비슷한 존재들을 형성하도록 허락이 내려졌다.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집단인 50명의 중도 창조체들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연후에, 행성영주는 무제한적으로 중도자들을 재생산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계획은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50,000명에 해당하는 기원적 무리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각 중도자의 생산 사이에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각 쌍으로부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의 자손이 나타나자마자 이러한 힘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하여도 항상 늘 실패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이 창조체들은 영주의 관리-행정에서 정보 무리단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멀리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는데, 세상의 종족들을 연구하고 관찰하였으며, 행성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있어서 영주와 그의 참모진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행성에 반란이 일어나던 비극의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1차 중도자들 중에서 5

existence of similar creatures on other worlds and in other systems, but they originated by dissimilar techniques.

77.1.2 (855.4) It is well always to bear in mind that the successive bestowals of the Sons of God on an evolving planet produce marked changes in the spiritual economy of the realm and sometimes so modify the workings of the interassociation of spiritual and material agencies on a planet as to create situations indeed difficult of understanding. The status of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illustrates just such a unique interassociation: As ascendant morontia citizens of Jerusalem they were supermaterial creatures without reproductive prerogatives. As descendant planetary ministers on Urantia they were material sex creatures capable of procreating material offspring (as some of them later did). What we cannot satisfactorily explain is how these one hundred could function in the parental role on a supermaterial level, but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A supermaterial (nonsexual) liaison of a male and a female member of the corporeal staff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the first-born of the primary midwayers.

77.1.3 (855.5) It was immediately discovered that a creature of this order, midway between the mortal and angelic levels, would be of great service in carrying on the affairs of the Prince's headquarters, and each couple of the corporeal staff was accordingly granted permission to produce a similar being. This effort resulted in the first group of fifty midway creatures.

77.1.4 (855.6) After a year of observing the work of this unique group, the Planetary Prince authorized the reproduction of midwayers without restriction. This plan was carried out as long as the power to create continued, and the original corps of 50,000 was accordingly brought into being.

77.1.5 (855.1) A period of one-half year intervened between the production of each midwayer, and when one thousand such beings had been born to each couple, no more were ever forthcoming. And there is no explanation available as to why this power was exhausted upon the appearance of the one thousandth offspring. No amount of further experimentation ever resulted in anything but failure.

77.1.6 (855.2) These creatures constituted the intelligence corps of the Prince's administration. They ranged far and wide, studying and observing the world races and rendering other invaluable services to the Prince and his staff in the work of influencing human society remote from the planetary headquarters.

77.1.7 (855.3) This regime continued until the tragic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which ensnared a

분의 4를 조금 넘는 숫자가 미혹되었다. 충성스런 무리단은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봉사에 들어갔고, 아담의 시대까지 명목상의 영도자관계인 반의 수하에서 활동하였다.

제 2 장. 낯-사람 종족

이상의 내용이 유란시아에 있는 중도 창조체들의 기원과 본성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두 계층들—1차와 2차—간의 친족관계는, 행성 반란 시대로부터 아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유형 참모진 중에서 반란에 가담한 요원들의 후손 혈통을 따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들에 의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두 번째 계층의 중도 창조체들의 조상의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유전적 혈통이었다.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신을 입은 요원들은, 안돈 부족들로부터 선택된 혈통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특별한 계층의 병합된 본질특성을 체현하는 자손들을 생산하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을 위하여 성(性) 창조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한 것이었다. 생명운반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세대 자손들과 영주의 참모진의 공동 자손의 연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필사자를 이미 계획해 놓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계층의 행성 창조체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었고, 그들이 인간 사회의 선생 그리고 통치자들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한 존재들은 시민 정부의 통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치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거의 완벽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유란시아가 양호한 지도력과 비길 데 없는 문화를 가진, 어떤 유형의 우수한 계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형 참모진이 나중에 재생산되었을 때는, 이미 반란이 일어난 후였고 그들이 그 체계의 생명 흐름들과 연결이 이미 박탈당하고 난 뒤이었기 때문이다.

배반이 있는 이후의 시대에 유란시아에서는 진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달라마시아의 문명—이 무너지고 있었다. “네페림(낯-사람)이 그러한 날에 땅 위에 있었고, 이들 하느님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탄생하였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옛날의 막강한 사람들’, ‘명성을 얻은 자들’이었다.” 참모진과 그들의 초기 자손들은 도저히 “하느님들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옛 시대의 진화 필사자들에게는 그렇게 간주되었다; 그들의 모습까지도 전승에 의해서 과장되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거의 전 세계적인 민간 설화의 기원이 되었는데, 하느님들이 땅 위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고 영웅적인 옛 종족들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설은 두 번째 동산 안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아담-사람들의 종족 혼합 사건들과 섞여 더욱 혼돈을 일으켰다.

little over four fifths of the primary midwayers. The loyal corps entered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functioning under the titular leadership of Van until the days of Adam.

2. THE NODITE RACE

77:2.1 (856.4) While this is the narrative of the origin, nature, and function of the midway creatures of Urantia, the kinship between the two orders — primary and secondary — makes it necessary to interrupt the story of the primary midwayers at this point in order to follow out the line of descent from the rebel members of the corporeal staff of Prince Caligastia from the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to the times of Adam. It was this line of inheritance which, in the early days of the second garden, furnished one half of the ancestry for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 creatures.

77:2.2 (856.5) The physic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had been constituted sex creatures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plan of procreating offspring embodying the combined qualities of their special order united with those of the selected stock of the Andon tribes, and all of this was in anticipation of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Adam. The Life Carriers had planned a new type of mortal embracing the union of the conjoint offspring of the Prince's staff with the first-generation offspring of Adam and Eve. They had thus projected a plan envisioning a new order of planetary creatures whom they hoped would become the teacher-rulers of human society. Such beings were designed for social sovereignty, not civil sovereignty. But since this project almost completely miscarried, we shall never know what an aristocracy of benign leadership and matchless culture Urantia was thus deprived of. For when the corporeal staff later reproduced, it was subsequent to the rebellion and after they had been deprived of their connection with the life currents of the system.

77:2.3 (856.6) The postrebellion era on Urantia witnessed many unusual happenings. A great civilization — the culture of Dalamatia — was going to pieces. “The Nephilim (Nodites) were on earth in those days, and when these sons of the gods went in 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to them, their children were the ‘mighty men of old,’ the ‘men of renown.’” While hardly “sons of the gods,” the staff and their early descendants were so regarded by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hose distant days; even their stature came to be magnified by tradition. This, then, is the origin of the well-nigh universal folk tale of the gods who came down to earth and there with the daughters of men begot an ancient race of heroes. And all this legend became further confused with the race mixtures of the later appearing Adamites in the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를 입은 100명의 요원들이 안돈-사람의 인간 혈통들로부터 세포 원형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성(性) 관계에 의해서 번식되었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다른 안돈-사람 부모들의 자손들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뜻을 추종하였던 60명의 배반한 참모들이 실제로 성(性)적인 번식에 참여하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안돈-사람은 물론 산직 민족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이 입증되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탁월함은 육체적인 본질특성과 지적 본질특성 뿐만 아니라 영적 수용능력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최초의 낯-사람 세대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에 의한 이 특색들은, 안돈의-세포 원형질의 유전적 요소들로 인한 화학적 구조와 배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특정한 변화들에 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유지 순환회로들이 그 참모진 요원들의 육체 속에 현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이 생명 순환회로들은, 특화된 유란시아 원형질의 염색체들로 하여금 지정받은 네바돈 생명 현시활동의 표준화된 사타니아 특별성의 원형들을 더욱 닮도록 재조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 체계 생명 기류들의 활동에 의한 이러한 세포 원형질 변형 기법은,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식물과 동물의 세포 원형질을 X 선을 이용하여 변형시키는 과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낯-사람 민족들은 어떤 고유적이고 예상치 못하였던 변형에 의해서 발생되었는데, 안돈-사람 중에서 공헌한 육체들로부터 유형 참모진 요원들의 육체들 속으로 아발론 외과 의사들에 의해 옮겨졌던 생명 원형질 속에서 발생되었다.

100명의 안돈-사람 세포 원형질 기증자들이 차례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유기체적 보완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타니아 생명 기류가 그들의 육체 속에도 마찬가지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날 것이다. 변형된 안돈-사람들 중에서 참모진을 따라 반란에 참여하였던 44명 역시 그들끼리 짝을 지었고 낯-사람 민족의 더 나은 혈통들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변형된 안돈-사람 세포 원형질을 갖고 있었던 104명을 포함하여, 이 두 집단들은 유란시아에 8번째 종족으로 나타난 낯-사람의 조상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있는 인간 생명의 이러한 새로운 특성은, 이 행성을 생명-변형 세계로 활용하려는 기원 계획이 실행된 다른 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것은 예상치 못하였던 발전들 중의 하나였다.

순수한 혈통의 낯-사람들은 하나의 훌륭한 인종이었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 세상의 진화적 사람들과 혼합되었고,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퇴보

second garden.

77:2.4 (857.1) Since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the Prince's staff carried germ plasm of the Andonic human strains, it would naturally be expected that, if they engaged in sexual reproduction, their progeny would altogether resemble the offspring of other Andonite parents. But when the sixty rebels of the staff, the followers of Nod, actually engaged in sexual reproduction, their children proved to be far superior in almost every way to both the Andonite and the Sangik peoples. This unexpected excellence characterized not only physical and intellectual qualities but also spiritual capacities.

77:2.5 (857.2) These mutant traits appearing in the first Nodite generation resulted from certain changes which had been wrought in the configuration and in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the inheritance factors of the Andonic germ plasm. These changes were caused by the presence in the bodies of the staff members of the powerful life-maintenance circuits of the Satania system. These life circuits caused the chromosomes of the specialized Urantia pattern to reorganize more after the patterns of the standardized Satania specialization of the ordained Nebadon life manifestation. The technique of this germ plasm metamorphosis by the action of the system life currents is not unlike those procedures whereby Urantia scientists modify the germ plasm of plants and animals by the use of X rays.

77:2.6 (857.3) Thus did the Nodite peoples arise out of certain peculiar and unexpected modifications occurring in the life plasm which had been transferred from the bodies of the Andonite contributors to those of the corporeal staff members by the Avalon surgeons.

77:2.7 (857.4) It will be recalled that the one hundred Andonite germ plasm contributors were in turn made possessors of the organic complement of the tree of life so that the Satania life currents likewise invested their bodies. The forty-four modified Andonites who followed the staff into rebellion also mated among themselves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better strains of the Nodite people.

77:2.8 (857.5) These two groups, embracing 104 individuals who carried the modified Andonite germ plasm, constitute the ancestry of the Nodites, the eighth race to appear on Urantia. And this new feature of human life on Urantia represents another phase of the outworking of the original plan of utilizing this planet as a life-modification world, except that this was one of the unforeseen developments.

77:2.9 (857.6) The pure-line Nodites were a magnificent race, but they gradually mingled with the evolutionary peoples of earth, and before long

가 발생되었다. 반란이 있는 지 10,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적인 종족들의 수명보다 약간 긴 정도까지 하락하였다.

고고학자들이 늦-사람들의 후대 수메르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점토층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상승하는 수메르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였으며, 이들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각각의 왕들의 통치 기간이 25년 내지 30년으로부터 15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들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초기의 늦-사람 일부 통치자들이(영주 참모진의 직계 후손들) 그들의 후대 자손들보다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며, 달라마시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왕조를 뻗쳐 다가가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래 살았던 그러한 개별존재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 계산에 있어서 월과 년을 혼돈한 것에서 기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적 혈통과 중국의 초기 기록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8일로 되어 있는 한 달 또는 계절이 후대에 소개된 350일이 조금 넘는 1년과 혼돈을 일으킨 것이 그러한 긴 인간 수명 전통을 만들게 하였다.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70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에 해당하였으며, 그러한 삶은 매우 긴 기간으로 간주되었는데, “고희(古稀)”라는 삶의 기간이 나중에 명명되었다.

28일을 한 달로 치는 시간 계산이 아담 시대보다 먼 훗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약 7,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달력을 다시 만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하였는데, 1년을 365일로 소개하였다.

great deterioration had occurred. Ten thousand years after the rebellion they had lost ground to the point where their average length of life was little more than that of the evolutionary races.

77:2.10 (857.7) When archaeologists dig up the clay-tablet records of the later-day Sumerian descendants of the Nodites, they discover lists of Sumerian kings running back for several thousand years; and as these records go further back, the reigns of the individual kings lengthen from around twenty-five or thirty years up to one hundred and fifty years and more. This lengthening of the reigns of these older kings signifies that some of the early Nodite rulers (immediate descendants of the Prince's staff) did live longer than their later-day successors and also indicates an effort to stretch the dynasties back to Dalamatia.

77:2.11 (857.8) The records of such long-lived individuals are also due to the confusion of months and years as time periods. This may also be observed in the Biblical genealogy of Abraham and in the early records of the Chinese. The confusion of the twenty-eight-day month, or season, with the later introduced year of more than three hundred and fifty days is responsible for the traditions of such long human lives. There are records of a man who lived over nine hundred “years.” This period represents not quite seventy years, and such lives were regarded for ages as very long, “threescore years and ten” as such a life span was later designated.

77:2.12 (858.1) The reckoning of time by the twenty-eight-day month persisted long after the days of Adam. But when the Egyptians undertook to reform the calendar, about seven thousand years ago, they did it with great accuracy, introducing the year of 365 days.

제 3 장. 바벨 탑

달라마시아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후에, 늦-사람들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딜문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그들의 종족과 문화적 중심지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늦이 죽은 지 약 50,000년 후에, 영주의 참모진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새로운 도시인 딜문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땅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들의 영역 경계선들과 인접하는 안돈-사람들과 그리고 산직 부족들과 상호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영도자들은 자기 종족 합일을 보존시킬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부족들의 협의회가 소집되었고, 늦의 후예인 바블롯의 계획을 심사숙고한 끝에, 그들은 그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바블롯은 그 당시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앙에 종족을 영화롭게 할 만한 거창한 성전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성전 안에

3. THE TOWER OF BABEL

77:3.1 (858.2) After the submergence of Dalamatia the Nodites moved north and east, presently founding the new city of Dilmun as their racial and cultural headquarters. And about fifty thousand years after the death of Nod, when the offspring of the Prince's staff had become too numerous to find subsistence in the lands immediately surrounding their new city of Dilmun, and after they had reached out to intermarry with the Andonite and Sangik tribes adjoining their borders, it occurred to their leaders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to preserve their racial unity. Accordingly a council of the tribes was called, and after much deliberation the plan of Bablot, a descendant of Nod, was endorsed.

77:3.2 (858.3) Bablot proposed to erect a pretentious temple of racial glorification at the center of their then occupied territory. This temple was to have a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의 탑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였다. 이 기념관을 딜문 안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수도였던 달라마시아가 물에 잠겼다는 전승을 기억하고, 그러한 거대한 구조물은 바다에 의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소에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블롯은 이 새로운 건물이 낯-사람의 문화와 문명의 미래적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그의 조언이 마침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그 도시는 그 탑의 고안건축가이며 건축자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바블롯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블로드라고 알려졌고 결국에는 바벨이 되었다.

그러나 낯-사람들은 이 일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도자들도 건축 계획이나 또는 그 건물들이 완성된 후의 용도에 대하여 전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4년 반 동안의 작업이 진행된 후에,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에 대하여 큰 논쟁이 일어났다. 그 다툼은 더욱 격심하게 되어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음식을 나르던 자들이 그 분쟁 소식을 퍼뜨렸고, 그 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부지에 모여들었다. 그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관점들이 제안되었다.

1.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큰 집단은, 낯-사람의 역사와 인종적 우월성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탑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모든 후세의 자손들이 경탄할 수 있도록 거대하고 당당한 구조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2.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무리들은 딜문의 문화를 기념할 수 있도록 그 탑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 바블롯 지역이 상업과 예술 그리고 제조업의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3. 가장 숫자가 적고 소수파인 무리는, 칼리가스티아 반란에 참여하였던 자기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탑을 세우자고 고집하였다. 그들은 그 탑이 오직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모든 목적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것—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을 위한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 기능을 하는—이라고 주장하였다.

종교적인 주장들은 즉각적으로 부결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반역의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인종적 오명(汚名)에 분개하였다. 세 가지 관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두 가지가 논쟁에 의해서 부결되자, 사람들은 싸움에 빠져들었

tower the like of which the world had never seen. It was to be a monumental memorial to their passing greatness. There were many who wished to have this monument erected in Dilmun, but others contended that such a great structure should be placed a safe distance from the dangers of the sea, remembering the traditions of the engulfment of their first capital, Dalamatia.

77:3.3 (858.4) Bablot planned that the new buildings should become the nucleus of the future center of the Nodite culture and civilization. His counsel finally prevailed, and construction was started in accordance with his plans. The new city was to be named *Bablot* after the architect and builder of the tower. This location later became known as Bablod and eventually as Babel.

77:3.4 (858.5) But the Nodites were still somewhat divided in sentiment as to the plans and purposes of this undertaking. Neither were their leaders altogether agreed concerning either construction plans or usage of the buildings after they should be completed. After four and one-half years of work a great dispute arose about the object and motive for the erection of the tower. The contentions became so bitter that all work stopped. The food carriers spread the news of the dissension, and large numbers of the tribes began to forgather at the building site. Three differing views were propounded as to the purpose of building the tower:

77:3.5 (858.6) 1. The largest group, almost one half, desired to see the tower built as a memorial of Nodite history and racial superiority. They thought it ought to be a great and imposing structure which would challenge the admiration of all future generations.

77:3.6 (858.7) 2. The next largest faction wanted the tower designed to commemorate the Dilmun culture. They foresaw that Bablot would become a great center of commerce, art, and manufacture.

77:3.7 (859.1) 3. The smallest and minority contingent held that the erection of the tower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making atonement for the folly of their progenitors in participating in the Caligastia rebellion. They maintained that the tower should be devoted to th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that the whole purpose of the new city should be to take the place of Dalamatia — to function as the cultural and religious center for the surrounding barbarians.

77:3.8 (859.2) The religious group were promptly voted down. The majority rejected the teaching that their ancestors had been guilty of rebellion; they resented such a racial stigma. Having disposed of one of the three angles to the dispute and failing to settle the other two by debate, they

다. 아무도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종교가들은 남쪽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 피하였지만, 그들의 동료들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싸웠다.

약 12,000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사람(놏-사람들과 아담-사람들)의 혼합된 종족들이 첫 번째 구조물의 폐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하였지만, 대규모 사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그 자체의 야심찬 무게 때문에 무너졌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의 땅으로 알려졌다.

제 4 장. 놏-사람들의 문명 중심지

놏-사람들의 분산은 바벨탑에 대한 살인적인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내란은 순수 놏-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담의-이전 시대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그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놏-사람의 문화는, 아담의-주입으로 발전될 때까지 120,000년 이상 동안 계속 퇴보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 동안에도 놏-사람들은 여전히 하나의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산 건축자들 속에 합류하였고, 반의 집단 지휘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은 놏-사람들이었다. 아담의 참모를 도왔던 가장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도 이 종족이었다.

네 개의 거대한 놏-사람 중심지들 중에서 세 개는 바블롯 투쟁 직후에 건설되었다:

1. 서부 즉 시리아의 놏-사람들. 민족주의자 또는 종족을 지키려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에 후대의 놏-사람 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돈-사람들과 연관하였다. 이들은 분산된 놏-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나중에 나타난 아시리아인 혈통에 많이 기여하였다.

2. 동부 즉 엘람의 놏-사람들. 문화와 상업을 지지하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엘람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산직 부족들과 연합하였다. 30,000년 또는 40,000년 전의 엘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는 이미 주로 산직 종족이었지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의 문명보다 우월한 문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에는, 근처에 있던 이 놏-사람 정착지를 “놏의 땅”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였으며; 놏-사람 집단과 아담-사람들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동안, 두 종족들의 피가 크게 섞였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들(아담-사람들)이 사람의 딸들(놏-사람들)과 상호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관습으로 되가기 때문이었다.

3. 중앙 즉 수메르인-이전 놏-사람. 티그리스

fell to fighting. The religionists, the noncombatants, fled to their homes in the south, while their fellows fought until well-nigh obliterated.

77:3.9 (859.3) About twelve thousand years ago a second attempt to erect the tower of Babel was made. The mixed races of the Andites (Nodites and Adamites) undertook to raise a new temple on the ruins of the first structure, but there was not sufficient support for the enterprise; it fell of its own pretentious weight. This region was long known as the land of Babel.

4. NODITE CENTERS OF CIVILIZATION

77:4.1 (859.4) The dispersion of the Nodites was an immediate result of the internecine conflict over the tower of Babel. This internal war greatly reduced the numbers of the purer Nodites and was in many ways responsible for their failure to establish a great pre-Adamic civilization. From this time on Nodite culture declined for over one hundred and twenty thousand years until it was upstepped by Adamic infusion. But even in the times of Adam the Nodites were still an able people. Many of their mixed descendants were numbered among the Garden builders, and several of Van's group captains were Nodites. Some of the most capable minds serving on Adam's staff were of this race.

77:4.2 (859.5) Three out of the four great Nodite centers were established immediately following the Bablot conflict:

77:4.3 (859.6) 1. *The western or Syrian Nodites.* The remnants of the nationalistic or racial memorialists journeyed northward, uniting with the Andonites to found the later Nodite centers to the northwest of Mesopotamia. This was the largest group of the dispersing Nodites, and they contributed much to the later appearing Assyrian stock.

77:4.4 (859.7) 2. *The eastern or Elamite Nodites.* The culture and commerce advocates migrated in large numbers eastward into Elam and there united with the mixed Sangik tribes. The Elamites of thirty to forty thousand years ago had become largely Sangik in nature, although they continued to maintain a civilization superior to that of the surrounding barbarians.

77:4.5 (859.8)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garden it was customary to allude to this near-by Nodite settlement as “the land of Nod”; and during the long period of relative peace between this Nodite group and the Adamites, the two races were greatly blended, for it became more and more the custom for the Sons of God (the Adamites) to intermarry with the daughters of men (the Nodites).

77:4.6 (860.1) 3. *The central or pre-Sumerian*

와 유프라테스 강들의 입구에 있는 작은 집단은 그들의 종족적 고결한-순수성을 좀 더 유지하였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아담-사람들과 피가 섞여져서 역사 시대에 서의 수메르 민족을 세운, 낫-사람 가계(家系)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하여 그토록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활동 무대에서 신비하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는 아무리 조사하여도 수메르인들의 시초까지 거슬러 상승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들은 달라마시아가 물에 가라앉은 이후인 200,000년 전에 기원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 그들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지만, 고대의 이 부족들은, 충분히-성숙되고 우월한 문화를 간직한 채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성전들, 금속 기술, 농업, 동물들, 도예술, 직조술, 상업 법, 시민 정부 규칙들, 종교 예식, 그리고 진부한 글씨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그들은 오랫동안 딜문에서 기원된 독특한 글씨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비록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셈 계통이 아니었다; 소위 아리아 어족(語族)과 공통점이 많았다.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남겨진 정교한 기록들이, 딜문이라는 초기 도시 근처의 페르시아 만에 위치하였던 주목할 만한 정착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이 도시를 고대의 영광스러운 딜맛이라고 불렀으며, 반면에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낫-사람 도시들과 달라마시아를 혼동하여 이 셋을 모두 딜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들의 토판(土版) 문서들을 발견하였는데, 이것들은 초기의 이 파라다이스를 “하느님들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생활에 대한 표본으로 인류를 축복한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의 파라다이스였던 이 딜문을 설명하는 이 토판들은 현재 많은 박물관들의 선반 위에서 먼지로 뒤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수메르인들은 첫 번째 에덴과 두 번째 에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사람들과의 광범위한 상호 결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동산 거주자들을 계속하여 이질적인 족속으로 간주하였다. 훨씬 고대의 낫-사람 문화에 대한 수메르인의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딜문 도시의 천국과 같은 웅대한 전통들을 지키기 위하여 영화로운 후대의 이 추억들을 무시하였다.

4. 북쪽의 낫-사람들과 아마돈-사람들—반-사람들. 이 집단은 바블롯 투쟁이 있기 전에 조성되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낫-사람들은, 낫과 그의 후손들의 지도 체제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을 추종한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

반의 초기 친족들 중의 일부는 그의 이름을 여전히 간직한 호숫가 부근에 정착하였고, 그들의 전통들은 그 부근에서 번성하였다. 아라랏 산이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되었는데, 시나이 산이

Nodites. A small group at the mouth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maintained more of their racial integrity. They persist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eventually furnished the Nodite ancestry which blended with the Adamites to found the Sumerian peoples of historic times.

77:4.7 (860.2) And all this explains how the Sumerians appeared so suddenly and mysteriously on the stage of action in Mesopotamia. Investigators will never be able to trace out and follow these tribes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umerians, who had their origin two hundred thousand years ago after the submergence of Dalamatia. Without a trace of origin elsewhere in the world, these ancient tribes suddenly loom upon the horizon of civilization with a full-grown and superior culture, embracing temples, metalwork, agriculture, animals, pottery, weaving, commercial law, civil codes, religious ceremonial, and an old system of writing. At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era they had long since lost the alphabet of Dalamatia, having adopted the peculiar writing system originating in Dilmun. The Sumerian language, though virtually lost to the world, was not Semitic; it had much in common with the so-called Aryan tongues.

77:4.8 (860.3) The elaborate records left by the Sumerians describe the site of a remarkable settlement which was located on the Persian Gulf near the earlier city of Dilmun. The Egyptians called this city of ancient glory Dilmun, while the later Adamized Sumerians confused both the first and second Nodite cities with Dalamatia and called all three Dilmun. And already have archaeologists found these ancient Sumerian clay tablets which tell of this earthly paradise “where the Gods first blessed mankind with the example of civilized and cultured life.” And these tablets, descriptive of Dilmun, the paradise of men and God, are now silently resting on the dusty shelves of many museums.

77:4.9 (860.4) The Sumerians well knew of the first and second Edens but, despite extensive intermarriage with the Adamites, continued to regard the garden dwellers to the north as an alien race. Sumerian pride in the more ancient Nodite culture led them to ignore these later vistas of glory in favor of the grandeur and paradisiacal traditions of the city of Dilmun.

77:4.10 (860.5) 4. *The northern Nodites and Amadonites — the Vanites*. This group arose prior to the Babel conflict. These northernmost Nodites were descendants of those who had forsaken the leadership of Nod and his successors for that of Van and Amadon.

77:4.11 (860.6) Some of the early associates of Van subsequently settled about the shores of the lake which still bears his name, and their traditions grew up about this locality. Ararat became their

히브리인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처럼 후대의 반-사람들에게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10,000년 전에, 반-사람인 아찌리아인 들의 선조들은, 자기들의 도덕법인 7계명인 아라랏 산에서 하느님들이 반에게 수여하셨던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연관-동료인 아마돈이 아라랏산에 올라가 경배를 들어가 있는 동안 산 채로 지구로부터 그들이 들려 올려져 벗어났다고 굳게 믿었다.

아라랏 산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룩한 산이었으며, 이러한 옛 시대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는 전통들 대부분이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와 관련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라랏산과 그 지역이 노아의 홍수와 전 세계적인 홍수에 관한 유대인들의 후대 이야기 속에 짜 맞추어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기원 전 약 35,000년경에, 아담아들은 자신의 문명 중심지를 설립하기 위하여 반-사람의 옛 정착지들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제 5 장. 아담아들과 라타

2차 중도자들의 혈통 이전의 낯-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 가계(家系)의 반쪽에 해당되는 아담의-이야기가 이제 고찰될 것인데, 2차 중도자들 역시 아담아들의 손자들, 최초로 유란시아에 태어난 보라색 인종이기 때문이다.

아담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맏아들은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북쪽에 있었던 그들의 고원 지대 고향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들었으며, 두 번째 동산을 세운 후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이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아담아들은 120세였고 첫 번째 동산에서 낳은 순수한 혈통의 32명 자녀들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기 부모들과 함께 남기를 원했었고 그들을 도와서 두 번째 동산을 세웠지만, 자신의 짝과 자기들의 자녀들을 잃음으로써 크게 동요되었는데, 그들 모두는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다른 아담의-아이들을 따라서 에덴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아담아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자기 부모들을 쓸쓸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두 번째 동산에 함께 머무는 것은 크게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방어와 건축으로 이루어진 초기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기회가 나는 대로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떠나감은 온통 즐거운 것이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의 맏아들이 자기들 곁을 떠나, 낯설고 호전적인 세계로 떠나게 된 것을 무척 슬퍼하였으며, 돌아오지 못하

sacred mountain, having much the same meaning to later-day Vanites that Sinai had to the Hebrews. Ten thousand years ago the Vanite ancestors of the Assyrians taught that their moral law of seven commandments had been given to Van by the Gods upon Mount Ararat. They firmly believed that Van and his associate Amadon were taken alive from the planet while they were up on the mountain engaged in worship.

77:4.12 (860.7) Mount Ararat was the sacred mountain of northern Mesopotamia, and since much of your tradition of these ancient times was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it is not surprising that Mount Ararat and its region were woven into the later Jewish story of Noah and the universal flood.

77:4.13 (860.8) About 35,000 B.C. Adamson visited one of the easternmost of the old Vanite settlements to found his center of civilization.

5. ADAMSON AND RATTIA

77:5.1 (861.1) Having delineated the Nodite antecedents of the ancestry of the secondary midwayers, this narrative should now give consideration to the Adamic half of their ancestry, for the secondary midwayers are also the grandchildren of Adamson, the first-born of the violet race of Urantia.

77:5.2 (861.2) Adamson was among that group of the children of Adam and Eve who elected to remain on earth with their father and mother. Now this eldest son of Adam had often heard from Van and Amadon the story of their highland home in the north, and sometim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garden he determined to go in search of this land of his youthful dreams.

77:5.3 (861.3) Adamson was 120 years old at this time and had been the father of thirty-two pure-line children of the first garden. He wanted to remain with his parents and assist them in upbuilding the second garden, but he was greatly disturbed by the loss of his mate and their children, who had all elected to go to Edentia along with those other Adamic children who chose to become wards of the Most Highs.

77:5.4 (861.4) Adamson would not desert his parents on Urantia, he was disinclined to flee from hardship or danger, but he found the associations of the second garden far from satisfying. He did much to forward the early activities of defense and construction but decided to leave for the north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nd though his departure was wholly pleasant, Adam and Eve were much grieved to lose their eldest son, to have him go out into a strange and hostile world, as they feared,

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가 어렸을 적에 상상하던 이 사람들을 찾아서, 27명의 무리가 아담아들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3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담아들의 무리는 그들의 모험 대상이었던 곳을 실제로 발견하였으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는 훌륭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발견하였는데, 그녀는 20세였고, 영주의 참모진의 마지막 순수 혈통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타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자기 조상들 모두가 영주의 타락한 참모진들 중에서 두 사람의 후손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자기 종족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었고, 자손 없이 죽을 것을 마음먹고 있었지만, 장엄한 아담아들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고 에덴에 관한 이야기,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하여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동산의 불이행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에게는 오로지—아담의 계승자이자 아들인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관념은 빠르게 아담아들에게 자라났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은 결혼하였다.

아담아들과 라타는 67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영도자관계가 되는 하나의 위대한 혈통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이었다. 이 두 존재들 모두가 실제로 초인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네 번째마다 독특한 계층에 속하였다. 그것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은 발생된 적이 없었다. 라타는 매우 당황하였지만—심지어는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음—, 아담아들은 1차 중도자들의 실존을 잘 알고 있었으며, 비슷한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지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두 번째 계층의 중도자들이 기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에 거의 2,000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담아들은 396년을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방문하였다. 매 7년마다 그와 라타는 남쪽으로 여행하여 두 번째 동산으로 갔으며, 그 동안에 그의 민족들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중도자들이 그에게 계속 전해주었다. 아담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위한 하나의 새롭고도 독립적인 세계적 중심지를 세우는 일에 크게 봉사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아들과 라타는 신기한 이 조력자들을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 협조자들은 진보를 이룩한 진리를 전파하는 일과, 영적인 생활과 지적인 생활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의 보다 높은 표준을 펴뜨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오래도록 살아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수고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개선시키는 일에 있어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그 후에 일어난 쇠퇴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never to return.

77:5.5 (861.5) A company of twenty-seven followed Adamson northward in quest of these people of his childhood fantasies. In a little over three years Adamson's party actually found the object of their adventure, and among these people he discovered a wonderful and beautiful woman, twenty years old, who claimed to be the last pure-line descendant of the Prince's staff. This woman, Ratta, said that her ancestors were all descendants of two of the fallen staff of the Prince. She was the last of her race, having no living brothers or sisters. She had about decided not to mate, had about made up her mind to die without issue, but she lost her heart to the majestic Adamson. And when she heard the story of Eden, how the predictions of Van and Amadon had really come to pass, and as she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e Garden default, she was encompassed with but a single thought — to marry this son and heir of Adam. And quickly the idea grew upon Adamson. In a little more than three months they were married.

77:5.6 (861.6) Adamson and Ratta had a family of sixty-seven children. They gave origin to a great line of the world's leadership, but they did something mor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both of these beings were really superhuman. Every fourth child born to them was of a unique order. It was often invisible. Never in the world's history had such a thing occurred. Ratta was greatly perturbed — even superstitious — but Adamson well knew of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midwayers, and he concluded that something similar was transpiring before his eyes. When the second strangely behaving offspring arrived, he decided to mate them, since one was male and the other female, and this is the origin of the secondary order of midwayers. Within one hundred years, before this phenomenon ceased, almost two thousand were brought into being.

77:5.7 (862.1) Adamson lived for 396 years. Many times he returned to visit his father and mother. Every seven years he and Ratta journeyed south to the second garden, and meanwhile the midwayers kept him informed regarding the welfare of his people. During Adamson's life they did great service in upbuilding a new and independent world center for truth and righteousness.

77:5.8 (862.2) Adamson and Ratta thus had at their command this corps of marvelous helpers, who labored with them throughout their long lives to assist in the propagation of advanced truth and in the spread of higher standards of spiritual, intellectual, and physical living. And the results of this effort at world betterment never did become fully eclipsed by subsequent retrogressions.

아담아들-사람들은 아담아들과 라타의 시대로부터 거의 7,000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이웃에 있는 낫-사람들 그리고 안돈-사람들과 섞이게 되었고, “옛날의 거대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루어진 진보의 일부는, 후대에 유럽 문명에서 꽃을 피웠던 문화적 잠재의 잠복된 부분이 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이 문명 중심지는 코펫 다그 근처인, 카스피해의 남쪽 끝 부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투르케스탄에 있는 구릉지 약간 위쪽은, 한 때 보라색 인종의 아담아들-사람들의 본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지에 있는 좁고도 오원지대들 속에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인 아담아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각각 조성된 네 개의 다양한 문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났었다. 이 집단들 중에서 두 번째 집단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이주하였다. 나머지 아담아들-사람들은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마지막 안드-사람 물결을 이룬 혼혈 혈통의 사람들이 따라갔으며, 그들도 역시 인도를 침입한 안드-사람-아리아인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 6 장.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들이 거의 초인간적 기원을 가진 것에 반하여, 2차 계층은 순수한 아담의-혈통이 선임 무리단의 가문과 공통되는 조상들의 인간화된 후손들과 연합하여 태어난 자손이다.

아담아들의 자녀들 중에서 2차 중도자들의 독특한 선조들은 오직 16명만이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의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쌍들은 성(性) 연락과 성(性) 연락이 아닌 병합된 기법에 의해서 매 70일마다 2차 중도자를 출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그 전에는 지구 위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 16명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필사자들처럼 살다가 죽었지만(그들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전기적으로 충전된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 생명이 유지되었고, 필사 육체의 한계를 겪지 않았다.

8쌍 각각은 결국에는 248명의 중도자들을 출산하였고, 기원적인 2차 무리단—1,984명—은 그렇게 하여 실존하게 되었다. 2차 중도자들에게는 8개의 하위(下位) 집단들이 있었다. 그들은 첫 번째 A-B-C, 두 번째 A-B-C, 세 번째 A-B-C 등으로 불렸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D-E-F, 두 번째 D-E-F 등이 있다.

아담의 불이행이 있는 후에 1차 중도자들은

77:5.9 (862.3) The Adamsonites maintained a high culture for almost seven thousand years from the times of Adamson and Ratta. Later on they became admixed with the neighboring Nodites and Andonites and were also included among the “mighty men of old.” And some of the advances of that age persisted to become a latent part of the cultural potential which later blossomed into European civilization.

77:5.10 (862.4) This center of civilization was situated in the region east of the southern end of the Caspian Sea, near the Kopet Dag. A short way up in the foothills of Turkestan are the vestiges of what was onetime the Adamsonite headquarters of the violet race. In these highland sites, situated in a narrow and ancient fertile belt lying in the lower foothills of the Kopet range, there successively arose at various periods four diverse cultures respectively fostered by four different groups of Adamson's descendants. It was the second of these groups which migrated westward to Greece and the islands of the Mediterranean. The residue of Adamson's descendants migrated north and west to enter Europe with the blended stock of the last Andite wave coming out of Mesopotamia, and they were also numbered among the Andite-Aryan invaders of India.

6. THE SECONDARY MIDWAYERS

77:6.1 (862.5) While the primary midwayers had a well-nigh superhuman origin, the secondary order are the offspring of the pure Adamic stock united with a humanized descendant of ancestors common to the parentage of the senior corps.

77:6.2 (862.6) Among the children of Adamson there were just sixteen of the peculiar progenitors of the secondary midwayers. These unique children were equally divided as regards sex, and each couple was capable of producing a secondary midwayer every seventy days by a combined technique of sex and nonsex liaison. And such a phenomenon was never possible on earth before that time, nor has it ever occurred since.

77:6.3 (862.7) These sixteen children lived and died (except for their peculiarities) as mortals of the realm, but their electrically energized offspring live on and on, not being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mortal flesh.

77:6.4 (862.8) Each of the eight couples eventually produced 248 midwayers, and thus did the original secondary corps — 1,984 in number — come into existence. There are eight subgroups of secondary midwayers. They are designated as A-B-C the first, second, third, and so on. And then there are D-E-F the first, second, and so on.

77:6.5 (862.9) After the default of Adam the primary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봉사로 되돌아갔으나, 반면에 2차 집단은 아담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담아들 중심에 소속되었다. 이 2차 중도자들 중에서 33명은 아담아들이 죽게 되자 그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되었는데, 멜기세덱의 봉사에 전체 계층을 휩쓸고 가서, 거기서 1차 무리단과의 연락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동행자들을 버리고 한 몸이 되어 행성 접수자들의 봉사로 갔다.

아담아들이 죽은 후에, 2차 중도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소외되고, 조직이 없고,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영향력이 되어갔다. 그 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시대까지, 그들은 불규칙하고 조직되지 않은 실존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충성스러운 대다수는 그 때 1차 중도자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제 7 장. 반란의 중도자

대부분의 1차 중도자들은 루시퍼 반란 시에 죄를 범하였다. 행성 반란에 의하여 황폐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손실들 가운데에서, 본래의 50,000명 중 40,119명이 칼리가스티아의 탈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중도자의 본래 숫자는 1,98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고 오순절 날에 유란시아에 내려진 행성 판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감금되었다. 타락한 이 창조체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두 집단의 반란 중도자들은 체계 반란의 관련 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보호관리 안에 현재 붙잡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개시되기 전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불충한 이 중도자들은 특별한 환경 아래에서는 필사자들의 눈앞에 자기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별히 이것은 배신한 2차 중도자들의 영도자인 바알세불의 연관-동료들에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창조체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까지 이 세상에 역시 존재하였던 반란에 가담한 어떤 케루빔들 그리고 세라핌 천사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어떤 작가들은 반항하는 이 중도 창조체들을 악한 영들과 귀신들로 표현하였고, 배신한 세라핌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로 표현하였다.

증여된 파라다이스 아들의 삶 이후에는 이 세

midwayers returned to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 receivers, while the secondary group were attached to the Adamson center until his death. Thirty-three of these secondary midwayers, the chiefs of their organization at the death of Adamson, endeavored to swing the whole order over to the service of the Melchizedeks, thus effecting a liaison with the primary corps. But failing to accomplish this, they deserted their companions and went over in a body to the service of the planetary receivers.

77:6.6 (863.1) After the death of Adamson the remainder of the secondary midwayers became a strange, unorganized, and unattached influence on Urantia. From that time to the days of Machiventa Melchizedek they led an irregular and unorganized existence. They were partially brought under control by this Melchizedek but were still productive of much mischief up to the days of Christ Michael. And during his sojourn on earth they all made final decisions as to their future destiny, the loyal majority then enlisti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mary midwayers.

7. THE REBEL MIDWAYERS

77:7.1 (863.2) The majority of the primary midwayers went into sin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When the devastation of the planetary rebellion was reckoned up, among other losses it was discovered that of the original 50,000, 40,119 had joined the Caligastia secession.

77:7.2 (863.3) The original number of secondary midwayers was 1,984, and of these 873 failed to align themselves with the rule of Michael and were duly interned in connection with the planetary adjudication of Urantia on the day of Pentecost. No one can forecast the future of these fallen creatures.

77:7.3 (863.4) Both groups of rebel midwayers are now held in custody awaiting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affairs of the system rebellion. But they did many strange things on earth prior to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planetary dispensation.

77:7.4 (863.5) These disloyal midwayers were able to reveal themselves to mortal ey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especially was this true of the associates of Beelzebub, the leader of the apostate secondary midwayers. But these unique creatures must not be confused with certain of the rebel cherubim and seraphim who also were on earth up to the time of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Some of the older writers designated these rebellious midway creatures as evil spirits and demons, and the apostate seraphim as evil angels.

77:7.5 (863.6) On no world can evil spirits possess

상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필사자 마음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는—생각 조절자들이 우주적으로 도래하기 전, 그리고 주(主)의 영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지기 전에는—반란에 가담한 이 중도자들이 실제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지능 존재들과 접촉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그 개인성으로부터 조절자가 분리된 경우에 충성스러운 중도자들이 유란시아의 운명예비무리단의 인간 마음에게 효과적인 접촉 보호관리자로서 봉사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기록이 이렇게 진술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그 분에게 데려왔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예수는 정신병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구별하였지만, 그 당시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들을 크게 혼동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오순절 이전에도, 반란에 가담한 어떤 영이든지 정상적인 인간 마음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그 날 이후로는 연약한 마음을 소유한 열등한 필사자들도 그러한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이후로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히스테리와 정신 이상 그리고 정신박약을 마귀 들린 것으로 믿는 혼동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미가엘의 중여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으로부터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언제까지나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실체가 아니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반란에 가담한 모든 중도자들은 현재 에덴시아의 지고자의 명령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의 현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진리의 영이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 또는 어떤 계급의 불충한 영들이든지 가장 연약한 인간 마음이라도 다시 침입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순절 날 이후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다시 생길 수 없다.

제 8 장. 연합된 중도자

이 세상에서의 최근의 마지막 판결에서, 시간에서 생존되어 잠을 자는 자들을 미가엘이 철수시켰을 때, 중도 창조체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 행성 위에서 영적인 일과 반(半)영적인 일을 돕도록 남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단일 집단으로 일하고 있으며, 두 계층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숫자는 10,992명이다. 유란시아의 연합 중도자들은 각 계층의 선임 요원에 의해서 번갈아가며 통치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오순절 직후에 하나의 집단으로 합병될 때부터 달성되었다.

any mortal mind subsequent to the life of a Paradise bestowal Son. But before the days of Christ Michael on Urantia — before the universal coming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pouring out of the Master's spirit upon all flesh — these rebel midwayers were actually able to influence the minds of certain inferior mortals and somewhat to control their actions. This was accomplished in much the same way as the loyal midway creatures function when they serve as efficient contact guardians of the human minds of the Urantia reserve corps of destiny at those times when the Adjuster is, in effect, detached from the personality during a season of contact with superhuman intelligences.

77:7.6 (863.7) It is no mere figure of speech when the record states: “And they brought to Him all sorts of sick people, those who were possessed by devils and those who were lunatics.” Jesus knew and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insanity and demoniacal possession, although these states were greatly confused in the minds of those who lived in his day and generation.

77:7.7 (863.8) Even prior to Pentecost no rebel spirit could dominate a normal human mind, and since that day even the weak minds of inferior mortals are free from such possibilities. The supposed casting out of devils since the arrival of the Spirit of Truth has been a matter of confounding a belief in demoniacal possession with hysteria, insanity, and feeble-mindedness. But just because Michael's bestowal has forever liberated all human minds on Urantia from the possibility of demoniacal possession, do not imagine that such was not a reality in former ages.

77:7.8 (864.1) The entire group of rebel midwayers is at present held prisoner by order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No more do they roam this world on mischief bent.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forever made it impossible for disloyal spirits of any sort or description ever again to invade even the most feeble of human minds.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ere never again can be such a thing as demoniacal possession.

8. THE UNITED MIDWAYERS

77:8.1 (864.2) At the last adjudication of this world, when Michael removed the slumbering survivors of time, the midway creatures were left behind, left to assist in the spiritual and semispiritual work on the planet. They now function as a single corps, embracing both orders and numbering 10,992.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are at present governed alternately by the senior member of each order. This regime has obtained since their amalgamation into one group shortly after

보다 오래된 또는 첫 번째 계층의 요원들은 대개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첫 번째 1-2-3, 첫 번째 4-5-6 등과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의-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의 숫자에 의한 호칭으로부터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알파벳에 의해서 호칭한다.

두 계층들은 영양물과 에너지를 섭취하는 면에서 볼 때에는 비(非)물질적 존재들이지만, 인간적인 특색들을 많이 갖고 있으며 너희의 유머뿐만 아니라 너희의 경배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필사자들에게 달려있는 때에는, 그들은 인간의 활동, 휴식, 오락의 영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을 자지 않으며, 번식하는 힘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집단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에 따라서 계통이 나뉘어 있는데, 종종 “그” 또는 “그녀”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들이 그러한 쌍으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도자들은 사람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들은 본성적으로 천사보다는 사람에 가까우며; 그들은 어떤 면에서 너희 인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들과 접촉함에 있어서 매우 납득을 잘하고 동정심을 느끼며; 그들은 인류의 다양한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세라핌천사들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들이고, 필사자들의 개인적인 수호자로 봉사하는 세라핌천사들에게 두 집단들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유란시아의 연합된 중도자들은 타고난 자질과 후천적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들 속에서 행성 세라핌천사들과 함께 봉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

1. 중도 메신저. 이 집단은 이름을 갖고 있다; 숫자가 적은 집단들이며, 신속하면서도 신뢰할만한 개인적 통신에서의 봉사에서 진화적인 세계를 크게 돕는다.

2. 행성 파수자. 중도자들은 우주 세계들의 수호자들, 파수자들이다. 그들은 그 세계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들어오는 통신 유형들과 수많은 현상들 전체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한다. 그들은 그 행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감시한다.

3. 접촉 개인성. 물질세계들의 필사 존재들과 접촉을 이룸에 있어서, 지금 이 통신들을 전송받은 주체에서의 경우처럼, 중도 창조체들이 항상 이용된다. 그들은 그러한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의 연락에서 필수 요소이다.

4. 진보 조력자. 이들은 더욱 영적인 중도 창조체들이며, 지구상에 있는 특별한 집단들 속에서 작용하는 세라핌천사들의 다양한 계층들의 보좌관으로서 배치되어 있다.

Pentecost.

77:8.2 (864.3) The members of the older or primary order are generally known by numerals; they are often given names such as 1-2-3 the first, 4-5-6 the first, and so on. On Urantia the Adamic midwayers are designated alphabetically in order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numerical designation of the primary midwayers.

77:8.3 (864.4) Both orders are nonmaterial beings as regards nutrition and energy intake, but they partake of many human traits and are able to enjoy and follow your humor as well as your worship. When attached to mortals, they enter into the spirit of human work, rest, and play. But midwayers do not sleep, neither do they possess powers of procreation. In a certain sense the secondary group are differentiated along the lines of maleness and femaleness, often being spoken of as “he” or “she.” They often work together in such pairs.

77:8.4 (864.5) Midwayers are not men, neither are they angels, but secondary midwayers are, in nature, nearer man than angel; they are, in a way, of your races and are, therefore, very understanding and sympathetic in their contact with human beings; they are invaluable to the seraphim in their work for and with the various races of mankind, and both orders are indispensable to the seraphim who serve as personal guardians to mortals.

77:8.5 (864.6)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are organized for service with the planetary seraphim in accordance with innate endowments and acquired skills, in the following groups:

77:8.6 (864.7) 1. *Midway messengers.* This group bear names; they are a small corps and are of great assistance on an evolutionary world in the service of quick and reliable personal communication.

77:8.7 (864.8) 2. *Planetary sentinels.* Midwayers are the guardians, the sentinels, of the worlds of space. They perform the important duties of observers for all the numerous phenomena and types of communication which are of import to the supernatural beings of the realm. They patrol the invisible spirit realm of the planet.

77:8.8 (865.1) 3. *Contact personalities.* In the contacts made with the mortal beings of the material worlds, such as with the subject through whom these communications were transmitted, the midway creatures are always employed. They are an essential factor in such liaisons of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levels.

77:8.9 (865.2) 4. *Progress helpers.* These are the more spiritual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ey are distributed as assistants to the various orders of seraphim who function in special groups on the

중도자들은, 위로는 세라핌천사들과, 그리고 아래로는 그들의 인간 사촌들과 접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테면, 1차 중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천사 형태의 존재에 현저하게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행성 위에 거주하는 영적 무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배정된다. 그들은 동행자로서 활동하며 천상(天上)의 방문자들과 학생 체류자들을 안내하고, 반면에 2차 창조체들은 그 세계의 물질적인 존재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배타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1,111명의 충성스러운 2차 중도자들은 지구 상에서 중요한 임무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의 1차 연관-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단연코 물질적이다. 그들은 필사자의 시력 범위 바로 바깥에 존재하며, 인간들이 “물질적 사물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의지적으로 육체적 접촉을 하도록 적응시키는 충분한 범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사물들에 대하여 특정한 한정적 힘을 갖고 있으며, 그 세계의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다.

천사들의 탓으로 돌려지는 보다 엄밀한 현상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2차 중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초기의 선생들이 그 당시의 무식한 종교 영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내 주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의해 야고보가 처형된 후에 베드로를 해방한 경우에 있어서, 천사의 탓으로 돌려진 그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오늘날 그들의 주된 업무는 운명적인 행성 예비무리단을 구성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개인-연락이자 연관-동료로서 하는 일이다. 유란시아에서 개인성들과 환경 조건들의 조화-협동을 불러일으키어, 천상(天上)의 행성 감독자들이, 이 소개가 그 일부분이 되고 있는 연속으로 된 계시들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만든, 저들 청원(請願)들을 개시하도록 최종적으로 유도하였던 것은, 이 2차 집단, 특정한 1차 무리단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두 번째가 된 이들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은, 중도 창조체들은 일반적으로 “강신론”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자행되는 지저분한 조작극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 제시되어 있는 중도자들은, 그 전체가 명예를 받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영매”라 불리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들은, 통상적으로는, 필요한 물질적인 활동이나 또는 물질세계와의 어떤 다른 접촉을,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인간이 목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planet.

77:8.10 (865.3) Midwayers vary greatly in their abilities to make contact with the seraphim above and with their human cousins below.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instance, for the primary midwayers to make direct contact with material agencies. They are considerably nearer the angelic type of being and are therefore usually assigned to working with, and ministering to, the spiritual forces resident on the planet. They act as companions and guides for celestial visitors and student sojourners, whereas the secondary creatures are almost exclusively attached to the ministry of the material beings of the realm.

77:8.11 (865.4) The 1,111 loyal secondary midwayers are engaged in important missions on earth. As compared with their primary associates, they are decidedly material. They exist just outside the range of mortal vision and possess sufficient latitude of adaptation to make, at will, physical contact with what humans call “material things.” These unique creatures have certain definite powers over the things of time and space, not excepting the beasts of the realm.

77:8.12 (865.5) Many of the more literal phenomena ascribed to angels have been performed by the secondary midway creatures. When the early teachers of the gospel of Jesus were thrown into prison by the ignorant religious leaders of that day, an actual “angel of the Lord” “by night opened the prison doors and brought them forth.” But in the case of Peter’s deliverance after the killing of James by Herod’s order, it was a secondary midwayer who performed the work ascribed to an angel.

77:8.13 (865.6) Their chief work today is that of unperceived personal-liaison associates of those men and women who constitute the planetary reserve corps of destiny. It was the work of this secondary group, ably seconded by certain of the primary corps, that brought about the co-ordination of personalities and circumstances on Urantia which finally induced the planetary celestial supervisors to initiate those petitions that resulted in the granting of the mandates making possible the series of revelations of which this presentation is a part. But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midway creatures are not involved in the sordid performances taking place under the general designation of “spiritualism.” The midwayers at present on Urantia, all of whom are of honorable standing, are not connected with the phenomena of so-called “mediumship”; and they do not, ordinarily, permit humans to witness their sometimes necessary physical activities or other contacts with the material world, as they are perceived by human senses.

제 9 장. 유란시아의 영구적인 시민

9. THE PERMANENT CITIZENS OF URANTIA

중도자들은 필사 창조체와 천사 무리들 같이, 진화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과는 대조적으로, 우주들에 두루 있는 세계들의 다양한 계층들 속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들 중에서 첫 번째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영구적인 시민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다양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어느 행성에서 사명활동하도록 배정된 천상의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들과는 달리, 중도자들은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산다. 세라핌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중도 창조체들은 현재 남아 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며, 그 행성의 원주민들이 되기 위하여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라핌천사 무리의 변화하는 관리-행정과 연결하고 협동을 이루는 하나의 지속적인 체제를 제공한다.

유란시아의 실제적인 시민들인 그 중도자들은 이 구체의 운명에 있어서 친족관계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단호한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그들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그들의 결심은 그들 계층이 내걸고 있는 좌우명에 의해서 암시되는데: “연합된 중도자들이 약속한 것은, 연합된 중도자들에 의해 기록된다.”

에너지 순환회로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중도자든지 행성을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주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언젠가 방면될 때까지 그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있다. 중도자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행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첫 번째 1-2-3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충성스러운 중도 창조체들 중에서는 한 명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1차 계층의 최고 고참인 첫 번째 1-2-3은, 오순절 직후에 직접적인 행성 임무에서 해제되었다. 고귀한 이 중도자는 행성 반란이 있었던 비극적인 날들 동안에 반과 아마돈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용맹스러운 지도력은 자기 계층 속에서 불상사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명의 조연자들 중의 하나로 봉사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한 때 유란시아의 총독으로 이미 활동하였었다.

중도자들은 행성에 묶여 있지만, 필사자들이 먼 곳으로부터 온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관하여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자들도 천상의 여행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주의 멀리 있는 지역에 관하여 배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오르본톤과 그의 자매 창조계들에 대하여 정통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여 창조체 실존의 높은 차원 위에서 시민 자격을 갖추도록 스스로를 준비한다.

중도자들은 충만하게 발달된 실존으로 나왔지만 반면에—미숙한 상태에서부터 자라거나 발달

77:9.1 (865.7) Midwayers may be regarded as the first group of the permanent inhabitants to be found on the various orders of worlds throughout the universes in contrast with evolutionary ascenders like the mortal creatures and the angelic hosts. Such permanent citizens are encountered at various points in the Paradise ascent.

77:9.2 (866.1) Unlike the various orders of celestial beings who are assigned to *minister* on a planet, the midwayers *live* on an inhabited world. The seraphim come and go, but the midway creatures remain and will remain, albeit they are nonetheless ministers for being natives of the planet, and they provide the one continuing regime which harmonizes and connects the changing administrations of the seraphic hosts.

77:9.3 (866.2) As actual citizens of Urantia, the midwayers have a kinship interest in the destiny of this sphere. They are a determined association, persistently working for the progress of their native planet. Their determination is suggested by the motto of their order: “What the United Midwayers undertake, the United Midwayers do.”

77:9.4 (866.3) Although their ability to traverse the energy circuits makes planetary departure feasible to any midwayer, they have individually pledged themselves not to leave the planet prior to their sometime release by the universe authorities. Midwayers are anchored on a planet until the ages of settled light and life. With the exception of 1-2-3 the first, no loyal midway creatures have ever departed from Urantia.

77:9.5 (866.4) 1-2-3 the first, the eldest of the primary order, was released from immediate planetary duties shortly after Pentecost. This noble midwayer stood steadfast with Van and Amadon during the tragic days of the planetary rebellion, and his fearless leadership was instrumental in reducing the casualties in his order. He serves at present on Jerusem as a member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having already functioned as governor general of Urantia once since Pentecost.

77:9.6 (866.5) Midwayers are planet bound, but much as mortals talk with travelers from afar and thus learn about remote places on the planet, so do midwayers converse with celestial travelers to learn about the far places of the universe. So do they become conversant with this system and universe, even with Orvonton and its sister creations, and so do they prepare themselves for citizenship on the higher levels of creature existence.

77:9.7 (866.6) While the midwayers were brought into existence fully developed — experiencing no

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음—, 지혜와 체험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라왔다. 필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시 진화하는 창조체들이며, 진화에 의해서 성실하게 성취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의 중도자 무리단 가운데에는 위대한 마음과 막강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많이 있다.

보다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란시아의 문명은 유란시아의 필사자들과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에 의한 협동 작품이며, 두 문화 사이의 차원이 현재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며, 그 차이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정되지 않을 것이다.

불멸하는 행성 시민들로서의 산물인 중도자들의 문화는, 인간의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인 변천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면역이 되어 있다. 사람 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 중도자 무리단은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통들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이다. 그래서 한 행성의 문화는 그 행성 위에 언제나 남아 있게 되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들에 관한 이야기도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에 의해서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사촌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처럼,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기억들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중도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죽음에 따라 나타난 물질적 관련사들과 영적 관련사들 사이의 간격을 보정하는 노련한 사망활동자들이다. 그들은 너희의 형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 빛과 생명의 정착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 속에서의 전우이다. 연합 중도자들은 반역-시험을 거친 무리단이며, 그들은 이 세계가 오랜 세월의 시대적 목표들을 달성할 때까지, 사실상 평화가 지구 위에 임하고 진리 안에서 선한 뜻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는 먼 훗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다.

이 중도자들에 의해 수행된 가치 있는 활동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이 영역의 영 계층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역에 의해 행성의 관련사들이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라핌천사들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

높은 영, 천사무리, 그리고 중도 동료들의 전체 조직은 진화 필사자의 진보하는 상승과 완전성 달성을 위한 파라다이스 계획,—하느님을 사람에게 내려 모셔오고, 다소 장엄한 동반자관계로서, 사람을 하느님께로 위로 옮기고 그리고 봉사의 영원과 달성의 신성을 진행하게 하는—필사자와 중도자 똑같이 모두를 위한 우주의 숭고한 사업의 하나를 추진하는 데에 열광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period of growth or development from immaturity — they never cease to grow in wisdom and experience. Like mortals they are evolutionary creatures, and they have a culture which is a bona fide evolutionary attainment. There are many great minds and mighty spirits among the Urantia midway corps.

77:9.8 (866.7) In the larger aspect the civilization of Urantia is the joint product of the Urantia mortals and the Urantia midwayers, and this is true despite the present differential between the two levels of culture, a differential which will not be compensated prior to the ages of light and life.

77:9.9 (866.8) The midway culture, being the product of an immortal planetary citizenry, is relatively immune to those temporal vicissitudes which beset human civilization. The generations of men forget; the corps of midwayers remembers, and that memory is the treasure house of the traditions of your inhabited world. Thus does the culture of a planet remain ever present on that planet, and in proper circumstances such treasured memories of past events are made available, even as the story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has been given by the midwayers of Urantia to their cousins in the flesh.

77:9.10 (867.1) Midwayers are the skillful ministers who compensate that gap between the material and spiritual affairs of Urantia which appeared upon the death of Adam and Eve. They are likewise your elder brethren, comrades in the long struggle to attain a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on Urantia. The United Midwayers are a rebellion-tested corps, and they will faithfully enact their part in planetary evolution until this world attains the goal of the ages, until that distant day when in fact peace does reign on earth and in truth is there good will in the hearts of men.

77:9.11 (867.2) Because of the valuable work performed by these midwayers, we have concluded that they are a truly essential part of the spirit economy of the realms. And where rebellion has not marred a planet's affairs, they are of still greater assistance to the seraphim.

77:9.12 (867.3) The entire organization of high spirits, angelic hosts, and midway fellows is enthusiastically devoted to the furtherance of the Paradise plan for the progressive ascension and perfection attainment of evolutionary mortals, one of the supernal businesses of the universe — the superb survival plan of bringing God down to man and then, by a sublime sort of partnership, carrying man up to God and on to eternity of service and divinity of attainment — alike for mortal and midwayer.

77:9.13 (867.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78 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종족

⇨ 077

유랜시아 책

07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8 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종족

섹션

소개

- 제 1 장. 종족과 문화의 분포
- 제 2 장. 두 번째 동산에서의 아담-사람들
- 제 3 장. 아담-사람들의 초기 확대
- 제 4 장. 안드-사람
- 제 5 장. 안드-사람의 이주
- 제 6 장. 안드-사람의 마지막 분산
- 제 7 장.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 제 8 장. 수메르인들—마지막 안드-사람들

소개

두 번째 에덴은 거의 30,000년 동안 문명의 요람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곳에서 아담의-민족들이 퍼져나갔는데, 자기 자손들을 땅 끝까지 보냈고, 노트-사람들과 산직 부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안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지역으로부터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오게 되어, 역사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유랜시아의 문화적 진보를 크게 증진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보라색 종족의 역사가 서술될 것인데, 기원전 약 35,000년에 있었던 아담의 불이행 직후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약 15,000년경의 노트-사람들 그리고 산직 부족들과의 혼합을 거쳐, 안드-사람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약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본거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라지기까지가 거론될 것이다.

제 1 장. 종족과 문화의 분포

PAPER 78

THE VIOLET RACE AFTER THE DAYS OF ADAM

SECTIONS

Introduction

- 1.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 2.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 3. Early Expansions of the Adamites
- 4. The Andites
- 5. The Andite Migrations
- 6. The Last Andite Dispersions
- 7. The Floods in Mesopotamia
- 8. The Sumerians — Last of the Andites

INTRODUCTION

78:0.1 (868.1) THE second Eden w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for almost thirty thousand years. Here in Mesopotamia the Adamic peoples held forth, sending out their progeny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latterly, as amalgamated with the Nodite and Sangik tribes, were known as the Andites. From this region went those men and women who initiated the doings of historic times, and who have so enormously accelerated cultural progress on Urantia.

78:0.2 (868.2) This paper depicts the planetary history of the violet race, beginning soon after the default of Adam, about 35,000 B.C., and extending down through its amalgamation with the Nodite and Sangik races, about 15,000 B.C., to form the Andite peoples and on to its final disappearance from the Mesopotamian homelands, about 2000 B.C.

1.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아담이 도착하였을 때, 그 종족들의 마음과 도덕이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진화는 칼리가스티아 반란의 급박한 상태에 크게 영향 받지는 않고 있었다. 그 종족들의 생물학적 지위에 대한 아담의 기여는, 그 임무의 부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란시아에 있는 민족들을 크게 증진시켰다.

또한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 진보에 유익한 많은 것들에 기여하였다; 문명은 그들의 자손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35,000년 전에는 세상에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다. 특정한 문명 중심지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란시아는 야만인의 상태에 있었다. 종족과 문명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1. 보라색 인종—아담-사람들과 아담아들-사람들. 아담-사람의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는 두 번째 동산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정말로 서방(西方)과 인도 문명의 발상지였다. 보라색 인종의 두 번째 또는 북쪽 중심지는 아담아들-사람의 본부였고, 코캣 산맥 근처에 있는 카스피해의 남부 해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두 중심지들로부터, 모든 종족들에게 매우 즉각적으로 활기를 띠게 하였던 문화와 생명의 원형질이 주변 지역들로 퍼져 나갔다.

2. 이전(以前)-수메르인과 다른 낫-사람들. 달라마시아 시대의 고대 문명 유물이 역시 그 강들의 입구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집단은 북쪽에 있는 아담-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섞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낫-사람의 전통을 전적으로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였던 다양한 다른 낫-사람 집단들은 후대에 팽창된 보라색 종족에 의해서 대개 흡수되었다.

3. 안돈-사람들은 아담아들 본부의 북동쪽에 있는 5개 내지 6개의 매우 전형적인 정착지들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퍼졌고, 반면에 유라시아 전체로 이어지는 섬들에서 고립되었는데 산악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하였다. 이 원주민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지역과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여전히 기거하고 있었지만, 유럽 평원에서는 청색 인종에 의해서 오래 전에 쫓겨났고, 더 먼 곳에 있었던 아시아의 하천 계곡지역으로부터는 팽창하는 황색 인종에 의해서 쫓겨났다.

4.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를 장악하였는데, 아담이 도래하기 50,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쫓겨났었다.

5. 황색 인종. 중국의 민족들은 동부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면서 잘 정착되었다. 가장 발달된 그들의 정착지는 현대 중국 북서부의 티베트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78:1.1 (868.3) Although the minds and morals of the races were at a low level at the time of Adam's arrival, physical evolution had gone on quite unaffected by the exigencies of the Caligastia rebellion. Adam's contribution to the biologic status of the races, notwithstanding the partial failure of the undertaking, enormously upstepped the people of Urantia.

78:1.2 (868.4) Adam and Eve also contributed much that was of value to the social, moral, and intellectual progress of mankind; civilization was immensely quickened by the presence of their offspring. But thir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world at large possessed little culture. Certain centers of civilization existed here and there, but most of Urantia languished in savagery. Racial and cultural distribution was as follows:

78:1.3 (868.5) 1. *The violet race — Adamites and Adamsonites.* The chief center of Adamite culture was in the second garden, located in the triangl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this was indeed the cradle of Occidental and Indian civilizations. The secondary or northern center of the violet race was the Adamsonite headquarters, situated east of the southern shore of the Caspian Sea near the Kopet mountains. From these two centers there went forth to the surrounding lands the culture and life plasm which so immediately quickened all the races.

78:1.4 (868.6) 2. *Pre-Sumerians and other Nodites.* There were also present in Mesopotamia, near the mouth of the rivers, remnants of the ancient culture of the days of Dalamatia. With the passing millenniums, this group became thoroughly admixed with the Adamites to the north, but they never entirely lost their Nodite traditions. Various other Nodite groups that had settled in the Levant were, in general, absorbed by the later expanding violet race.

78:1.5 (869.1) 3. *The Andonites* maintained five or six fairly representative settlements to the north and east of the Adamson headquarters. They we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urkestan, while isolated islands of them persisted throughout Eurasia, especially in mountainous regions. These aborigines still held the northlands of the Eurasian continent, together with Iceland and Greenland, but they had long since been driven from the plains of Europe by the blue man and from the river valleys of farther Asia by the expanding yellow race.

78:1.6 (869.2) 4. *The red man* occupied the Americas, having been driven out of Asia over fifty thousand years before the arrival of Adam.

78:1.7 (869.3) 5. *The yellow race.* The Chinese peoples were well established in control of eastern Asia. Their most advanced settlements were situated to the northwest of modern China in

6. 청색 인종. 청색 인종은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중심지는 지중해 분지의 비옥한 계곡들과 유럽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네안데르탈인과 합쳐짐으로써 청색 인종의 문화는 크게 퇴보되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유라시아의 진화하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하였으며 탐구심이 깊었다.

7. 이전(以前)-드라비다 종족의 인도. 인도에서 있었던 인종들 간의 복잡한 혼합—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포함하였는데, 특히 녹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검은 색 인종이었음—은 외곽 지역의 문화보다 약간 높은 문화를 유지하게 하였다.

8. 사하라 문명. 남색 인종의 우월한 요소들이 현재의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이룬 곳에서 그들 나름으로 가장 앞선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 남색-검은색 집단은 사라진 오렌지색 인종과 녹색 인종의 혈통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9. 지중해 분지. 인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피가 섞인 종족이 현재의 지중해 분지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북쪽으로부터 온 청색 인종과 남쪽으로부터 온 사하라인 들이 이곳에서 마주쳤고 동쪽에서 온 노트-사람과 아담-사람들과 섞였다.

이것이 약 25,000년 전에 보라색 인종의 엄청난 확대가 시작되기 전의 세상 모습이었다. 미래의 문명을 위한 가능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동산 속에 숨어 있었다. 아시아의 남서부인 이곳에, 거대한 문명의 잠재, 달라마시아 시대와 아담 시대로부터 구출되어 온 관념들과 이상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담과 이브는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후손들을 남겨두었으며,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天上)의 관찰자들은 과오를 범한 물질아들과 딸의 후손들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몹시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 2 장. 두 번째 동산에서의 아담-사람들

아담의 아들들은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근처에서 힘들게 생활하였는데, 남쪽에서는 관개 및 홍수 통제(=治水)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북쪽에서는 방어 설비들을 완전하게 만들며, 첫 번째 에덴의 영화로운 전통들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동산의 영도자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영웅적인 자질은 유란시아 역사에 있는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서사시들의 한 장면을 구성하였다. 뛰어난 혼(魂)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아담의-임무가 가졌던 목적을 전혀 잊어버린 적은 한 번

regions bordering on Tibet.

78:1.8 (869.4) 6. *The blue race.* The blue men were scattered all over Europe, but their better centers of culture were situated in the then fertile valleys of the Mediterranean basin and in northwestern Europe. Neanderthal absorption had greatly retarded the culture of the blue man, but he was otherwise the most aggressive, adventurous, and exploratory of all the evolutionary peoples of Eurasia.

78:1.9 (869.5) 7. *Pre-Dravidian India.* The complex mixture of races in India — embracing every race on earth, but especially the green, orange, and black — maintained a culture slightly above that of the outlying regions.

78:1.10 (869.6) 8. *The Sahara civilization.* The superior elements of the indigo race had their most progressive settlements in what is now the great Sahara desert. This indigo-black group carried extensive strains of the submerged orange and green races.

78:1.11 (869.7) 9. *The Mediterranean basin.* The most highly blended race outside of India occupied what is now the Mediterranean basin. Here blue men from the north and Saharans from the south met and mingled with Nodites and Adamites from the east.

78:1.12 (869.8) This was the picture of the world prior to the beginnings of the great expansions of the violet race, about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hope of future civilization lay in the second garden between the rivers of Mesopotamia. Here in southwestern Asia there existed the potential of a great civilization, the possibility of the spread to the world of the ideas and ideals which had been salvaged from the days of Dalamatia and the times of Eden.

78:1.13 (869.9) Adam and Eve had left behind a limited but potent progeny, and the celestial observers on Urantia waited anxiously to find out how these descendants of the erring Material Son and Daughter would acquit themselves.

2.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78:2.1 (869.10) For thousands of years the sons of Adam labored along the rivers of Mesopotamia, working out their irrigation and flood-control problems to the south, perfecting their defenses to the north, and attempting to preserve their traditions of the glory of the first Eden.

78:2.2 (869.11) The heroism displayed in the leadership of the second garden constitutes one of the amazing and inspiring epics of Urantia's history. These splendid souls never wholly lost sight of the purpose of the Adamic mission, and

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족들의 세력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동시에, 가장 정선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종족들에게 꾸준하게 메신저로 파견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였다. 어떤 때에는 이러한 확대가 본고장의 문화를 고갈시키기도 하였지만, 우월한 이 민족들은 항상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아담-사람의 문명과 사회 그리고 문화 상태는 유란시아에 있는 진화적 종족들의 일반적인 차원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오직 반과 아마돈의 옛 정착지들과 아담아들-사람들 속에서만이 어느 정도 비교될만한 문명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의 문명은 인공적인 구조였으며—진화된 것이 아니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진화 차원에 도달할 때까지 퇴보될 수밖에 없었다.

아담은 위대한 지적인 영적 문명을 남겨주었지만, 모든 문명이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과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창의적인 성과를 보증할만한 충분한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에 있어서는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보라색 인종의 문명은 아담의 현존과 첫 번째 에덴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었다. 아담이 죽은 후에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전통들이 희미하게 되자, 아담-사람의 문화적 차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차원과, 보라색 인종의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문화적 능력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위까지 퇴보하였다.

그러나 아담-사람들은 기원전 약 19,000년까지 실제적인 국가를 이루었고, 인구는 450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이미 수백만 명의 자손들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낸 상태였다.

제 3 장. 아담-사람들의 초기 확대

보라색 인종은 평화를 수호하는 에덴 전통들을 수천 년 동안 간직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구에서의 압력에 고통을 겪게 되자, 그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초과되는 숫자의 자기 주민들을 다른 종족들에게 선생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이주에 의한 문화적 효과가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담-사람의 선생들과 상인들 그리고 탐험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생물학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아담-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서쪽으로 여행하여 나일 지역에 이르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로 들어갔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후대의 대량 이동은 북쪽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이루어졌는데, 더 많은 숫자가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돌아서 카스피 해를 지나 유

therefore did they valiantly fight off the influences of the surrounding and inferior tribes while they willingly sent forth their choicest sons and daughters in a steady stream as emissaries to the races of earth. Sometimes this expansion was depleting to the home culture, but always these superior peoples would rehabilitate themselves.

78:2.3 (870.1) The civilization, society, and cultural status of the Adamites were far above the general level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Only among the old settlements of Van and Amadon and the Adamsonites was there a civilization in any way comparable. But the civilization of the second Eden was an artificial structure — *it had not been evolved* — and was therefore doomed to deteriorate until it reached a natural evolutionary level.

78:2.4 (870.2) Adam left a great intellectual and spiritual culture behind him, but it was not advanced in mechanical appliances since every civilization is limited by available natural resources, inherent genius, and sufficient leisure to insure inventive fruition. The civilization of the violet race was predicated on the presence of Adam and on the traditions of the first Eden. After Adam's death and as these traditions grew dim through the passing millenniums, the cultural level of the Adamites steadily deteriorated until it reached a state of reciprocal balance with the status of the surrounding peoples and the naturally evolving cultural capacities of the violet race.

78:2.5 (870.3) But the Adamites were a real nation around 19,000 B.C., numbering four and a half million, and already they had poured forth millions of their progeny into the surrounding peoples.

3. EARLY EXPANSIONS OF THE ADAMITES

78:3.1 (870.4) The violet race retained the Edenic traditions of peacefulness for many millenniums, which explains their long delay in making territorial conquests. When they suffered from population pressure, instead of making war to secure more territory, they sent forth their excess inhabitants as teachers to the other races. The cultural effect of these earlier migrations was not enduring, but the absorption of the Adamite teachers, traders, and explorers was biologically invigorating to the surrounding peoples.

78:3.2 (870.5) Some of the Adamites early journeyed westward to the valley of the Nile; others penetrated eastward into Asia, but these were a minority. The mass movement of the later days was extensively northward and thence westward. It was, in the main, a gradual but unremitting northward push, the greater number making their way north and then circling westward around the

럽으로 들어갔다.

약 25,000년 전에, 아담-사람들의 많은 순수한 요소들이, 북쪽으로 집단 이주한 자들에게서 잘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들어갔을 때, 투르케스탄 지역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아담의-요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으며, 다른 종족들과 속속들이 섞여 버렸는데, 특별히 노트-사람들과 많이 섞였다.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유럽과 아시아로 들어갔다.

기원전 약 30,000년으로부터 10,000년에 이르기까지, 신(新)시대를-만드는 종족 혼합이 남서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되었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씩씩하고 활기찬 민족이었다. 인도의 북서쪽 지역에서 반 시대의 문화가 유지되었다. 이 정착지들로부터 더 북쪽에서는 초기 안돈-사람의 최고 문화가 보존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와 성격이 우월한 이 두 종족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담-사람들에 의해서 흡수되었다. 이러한 혼합으로 많은 새로운 관념들이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문명의 진보를 촉진시켰고,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의 모든 위상을 크게 진보시켰다.

기원전 약 15,000년경에 초기 아담의-이주가 끝났을 때,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아담-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많았다. 유럽의 청색 인종들은 이미 크게 침입을 받은 상태였다. 현재의 러시아와 투르케스탄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노트-사람들과, 안돈-사람들, 그리고 적색 그리고 황색 산지들과 섞인 아담-사람들의 거대한 무리들에 의해서 남쪽으로 뿔어나간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다. 그리고 남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은, 극소수의 아담-사람 혈통이 섞인 안돈-사람과 산지 민족들—오렌지색, 녹색, 그리고 남색 종족—의 혼합된 종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와 중앙-동부 유럽 지역에는 안돈-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도래한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보충된, 피가 섞인 유색(有色) 인종이 이집트를 차지하였고 유프라테스 계곡의 사라져 가는 문화를 이어받을 준비를 갖추었다. 검은 색 민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고립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사하라 문명은 이미 가뭄에 의해서 붕괴되었고, 지중해 분지의 문명은 홍수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청색 인종들은 아직도 진보된 문화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돈-사람들은 여전히 북극 지방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녹색과 오렌지색 인종들은 이미 그렇게 멸절된 상태였다. 남색 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서서히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인종적 퇴보의 길을 걸었다.

인도에 있는 민족들은 진보되지 않는 문명과 함께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황색 인종은 중앙아

Caspian Sea into Europe.

78:3.3 (870.6) About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many of the purer elements of the Adamites were well on their northern trek. And as they penetrated northward, they became less and less Adamic until, by the times of their occupation of Turkestan, they had become thoroughly admixed with the other races, particularly the Nodites. Very few of the pure-line violet peoples ever penetrated far into Europe or Asia.

78:3.4 (870.7) From about 30,000 to 10,000 B.C. epoch-making racial mixtures were taking place throughout southwestern Asia. The highland inhabitants of Turkestan were a virile and vigorous people. To the northwest of India much of the culture of the days of Van persisted. Still to the north of these settlements the best of the early Andonites had been preserved. And both of these superior races of culture and character were absorbed by the northward-moving Adamites. This amalgamation led to the adoption of many new ideas; it facilitated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and greatly advanced all phases of art, science, and social culture.

78:3.5 (871.1) As the period of the early Adamic migrations ended, about 15,000 B.C., there were already more descendants of Adam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even than in Mesopotamia. The European blue races had been largely infiltrated. The lands now called Russia and Turkestan were occupied throughout their southern stretches by a great reservoir of the Adamites mixed with Nodites, Andonites, and red and yellow Sangiks. Souther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fringe were occupied by a mixed race of Andonite and Sangik peoples — orange, green, and indigo — with a sprinkling of the Adamite stock. Asia Minor and the central-eastern European lands were held by tribes that were predominantly Andonite.

78:3.6 (871.2) A blended colored race, about this time greatly reinforced by arrivals from Mesopotamia, held forth in Egypt and prepared to take over the disappearing culture of the Euphrates valley. The black peoples were moving farther south in Africa and, like the red race, were virtually isolated.

78:3.7 (871.3) The Saharan civilization had been disrupted by drought and that of the Mediterranean basin by flood. The blue races had, as yet, failed to develop an advanced culture. The Andonites were still scattered over the Arctic and central Asian regions. The green and orange races had been exterminated as such. The indigo race was moving south in Africa, there to begin its slow but long-continued racial deterioration.

78:3.8 (871.4) The peoples of India lay stagnant, with a civilization that was unprogressing; the yellow

시아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확장하고 있었다; 갈색 인종은 태평양 연안의 섬들 위에서 아직도 자신의 문명을 꽃피우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광범위한 기후 변화와 연관되는, 이러한 종족 분포는, 유란시아 문명의 안드-사람 시대의 시작을 위한 세계적인 무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초기 이주(移住)들은 기원전 25,000년부터 15,000년까지 약 10,000년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후대(後代) 또는 안드-사람의 이주는 기원전 15,000년부터 6,000년까지 계속되었다.

아담-사람의 물결이 유라시아를 지나가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운반 도중에 크게 손실되었다. 오직 후대의 안드-사람들만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무리 먼 지역까지라도 에덴의 문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이동하였다.

제 4 장. 안드-사람

안드-사람 종족들은, 순수 혈통의 보라색 인종과 닷-사람 그리고 진화적인 민족들이 1차적으로 혼합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안드-사람들은 현대의 종족들보다 아담의 피가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안드-사람이라는 말은 주로 그 인종적 유전성의 8분의 1내지 6분의 1을 보라색 인종으로부터 받은 민족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현대의 유란시아인 들은, 심지어는 북쪽의 백색 인종들마저도,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에 해당되는 아담의 피를 갖고 있다.

가장 초기의 안드-사람 민족들은 25,000년보다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기원되었고, 아담-사람과 닷-사람의 혼혈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동산은 자주색 피가 점차 줄어드는 동심원으로 둘러싸였고, 안드-사람 종족의 탄생은 이 인종 용광로 가장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이주하는 아담-사람들과 닷-사람들이 투르크스탄의 비옥한 지역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곧 우월한 주민들과 혼합되었으며, 그 결과로 생기는 종족 혼합은 북쪽에서 안드-사람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그 안드-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들 이후로 유란시아에 나타난 혈통들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아담-사람과 닷-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가장 수준 높은 유형들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황색 인종과 청색 인종 그리고 녹색 인종의 가장 우수한 혈통들 중의 일부도 흡수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안드-사람들은 아리아족이 아니었다; 아리아족의 선조였다. 그들은 백색 인종도 아니었고; 백색 인종의 선조였다. 그들은 서방의 민족이 아니었으며 동방의 민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갖고 혼합된 소위 백색 인종들에게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알려져 온 일반화된 동질성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안드-사람의

man was consolidating his holdings in central Asia; the brown man had not yet begun his civilization on the near-by islands of the Pacific.

78:3.9 (871.5) These racial distributions, associated with extensive climatic changes, set the world stage for the inauguration of the Andite era of Urantia civilization. These early migrations extended over a period of ten thousand years, from 25,000 to 15,000 B.C. The later or Andite migrations extended from about 15,000 to 6000 B.C.

78:3.10 (871.6) It took so long for the earlier waves of Adamites to pass over Eurasia that their culture was largely lost in transit. Only the later Andites moved with sufficient speed to retain the Edenic culture at any great distance from Mesopotamia.

4. THE ANDITES

78:4.1 (871.7) The Andite races were the primary blends of the pure-line violet race and the Nodites plus the evolutionary peoples. In general, Andites should be thought of as having a far greater percentage of Adamic blood than the modern races. In the main, the term Andite is used to designate those peoples whose racial inheritance was from one-eighth to one-sixth violet. Modern Urantians, even the northern white races, contain much less than this percentage of the blood of Adam.

78:4.2 (871.8) The earliest Andite peoples took origin in the regions adjacent to Mesopotamia more than twenty-five thousand years ago and consisted of a blend of the Adamites and Nodites. The second garden was surrounded by concentric circles of diminishing violet blood, and it was on the periphery of this racial melting pot that the Andite race was born. Later on, when the migrating Adamites and Nodites entered the then fertile regions of Turkestan, they soon blended with the superior inhabitants, and the resultant race mixture extended the Andite type northward.

78:4.3 (872.1) The Andites were the best all-round human stock to appear on Urantia since the days of the pure-line violet peoples. They embraced most of the highest types of the surviving remnants of the Adamite and Nodite races and, later, some of the best strains of the yellow, blue, and green men.

78:4.4 (872.2) These early Andites were not Aryan; they were pre-Aryan. They were not white; they were pre-white. They were neither an Occidental nor an Oriental people. But it is Andite inheritance that gives to the polyglot mixture of the so-called white races that generalized homogeneity which has been called Caucasoid.

유전자였다.

보라색 인종의 보다 순수한 혈통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아담의 전통을 간직하였는데, 그것은 초기의 인종 이동이 어떻게 하여 평화로운 이주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아담-사람들이 노-사람 혈통들과 연합하게 되자, 그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종족이 되었고, 그들의 안드-사람 후손들은, 그 시대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숙하고 영리한 군사 전문가들이 되었다. 그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거주자들에게서는 군인다운 성격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 실제적인 정복 활동에 점점 더 동족이 되어갔다.

이 안드-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하였고, 방랑하는 기질을 가졌다. 산길 또는 안돈-사람 혈통의 증가로 인하여 그들이 안정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대 자손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일주하고 마지막 남은 멀리 떨어진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제 5 장. 안드-사람의 이주

20,000년 동안 두 번째 동산의 문화가 지속되었지만, 그것은 기원전 약 15,000년까지 계속적인 퇴보를 체험하였는데, 그 때 셋이라는 사제 계급의 부활과 아모사드라는 영도자관계가 찬란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후대에 유라시아에 퍼진 문명의 거대한 물결은, 아담-사람들이 안드-사람들의 형태에 주변에 있는 혼합된 노-사람과 함께 연합하게 됨에 따라, 동산의 위대한 문예부흥의 뒤를 즉시 잇게 되었다.

이 안드-사람들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발전을 불러 일으켰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신경 전역까지 안드-사람 문화가 지배하였고, 유럽을 향한 끊임없는 이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혼합된 아담의 후손들이 마지막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안드-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고유의 종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무렵에는 두 번째 동산의 인종들도 너무 피가 섞인 상태여서, 더 이상 아담-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투르케스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후대의 말을 탄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회복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다. 소위 아리아족 고유 언어라고 불리는 것이 투르케스탄의 고원지대에서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던 안돈의 방언과 아담아들-사람들의 언어와 혼합되고 나중에는 안드-사람의 언어와 혼합된 것이었다. 현대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은 유럽과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윗부분을 정복한 중앙아시아의 이 부족들이 사용하던 초기 언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대의 이 언어는 소위 아리아어 족이라고 불리는 서방 언어들의 모든 유사점을 제공하였

78.4.5 (872.3) The purer strains of the violet race had retained the Adamic tradition of peace-seeking, which explains why the earlier race movements had been more in the nature of peaceful migrations. But as the Adamites united with the Nodite stocks, who were by this time a belligerent race, their Andite descendants became, for their day and age, the most skillful and sagacious militarists ever to live on Urantia. Thenceforth the movements of the Mesopotamians grew increasingly military in character and became more akin to actual conquests.

78.4.6 (872.4) These Andites were adventurous; they had roving dispositions. An increase of either Sangik or Andonite stock tended to stabilize them. But even so, their later descendants never stopped until they had circumnavigated the globe and discovered the last remote continent.

5. THE ANDITE MIGRATIONS

78.5.1 (872.5) For twenty thousand years the culture of the second garden persisted, but it experienced a steady decline until about 15,000 B.C., when the regeneration of the Sethite priesthood and the leadership of Amosad inaugurated a brilliant era. The massive waves of civilization which later spread over Eurasia immediately followed the great renaissance of the Garden consequent upon the extensive union of the Adamites with the surrounding mixed Nodites to form the Andites.

78.5.2 (872.6) These Andites inaugurated new advances throughout Eurasia and North Africa. From Mesopotamia through Sinkiang the Andite culture was dominant, and the steady migration toward Europe was continuously offset by new arrivals from Mesopotamia. But it is hardly correct to speak of the Andites as a race in Mesopotamia proper until near the beginning of the terminal migrations of the mixed descendants of Adam. By this time even the races in the second garden had become so blended that they could no longer be considered Adamites.

78.5.3 (872.7) The civilization of Turkestan was constantly being revived and refreshed by the newcomers from Mesopotamia, especially by the later Andite cavalrymen. The so-called Aryan mother tongue was in process of formation in the highlands of Turkestan; it was a blend of the Andonic dialect of that region with the language of the Adamsonites and later Andites. Many modern languages are derived from this early speech of these central Asian tribes who conquered Europe, India, and the upper stretches of the Mesopotamian plains. This ancient language gave the Occidental tongues all of that similarity which

다.

기원전 12,000년경에, 세상에 있는 전체 안드-사람들의 4분의 3이 유럽의 북부와 동부에 살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의 최후의 마지막 이주가 발생되었을 때, 이주하는 이 집단들 중에서 65퍼센트가 유럽으로 들어갔다.

안드-사람들은 유럽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북부 지역으로도 들어갔으며, 동시에 많은 집단들이 선교사들과 선생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땅 끝까지 퍼져갔다. 그들은 사하라의 산기 민족들 중에서 북부 지역에 있는 집단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나일 강의 상류지역 남쪽으로는 선생들과 상인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중에는 안드-사람과 이집트인들과 섞였고, 아프리카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 적도보다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마다가스카르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들 안드-사람들은 드라비다인이라 불렸고, 그리고 나중에 인도를 정복한 아리아인 들이었다; 중앙아시아의 그들의 현존은 우랄알타이 어족의 조상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 종족의 대부분은 신경과 티베트를 지나가는 양쪽 길로 중국에 들어갔고, 후대의 중국 혈통들에게 바람직한 본질특성을 더해 주었다. 때로는 작은 집단들이 일본, 대만, 동인도, 중국 남부로 여행하였고, 매우 적은 집단이 해안선을 따라 남부 중국으로 들어갔다.

이 종족 중에서 132명이 작은 배들에 나누어 타고 일본을 떠나 남아메리카에 결국에는 도착하였으며 안데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후대에 잉카 제국을 통치하는 조상이 되었다. 그들은 쉬운 단계들, 그 향로 도중에 발견되는 수많은 섬들 위에 머무르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폴리네시아 군도는 현재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고 면적도 훨씬 컸으며, 이 안드-사람 항해자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소수의 집단들과 함께, 여행 도중에 많은 원주민 집단들을 생물학적으로 변형시켰다. 안드-사람 종족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들 위에서, 번성하는 많은 문명 중심지들이 자라났다. 이스터 섬은 사라진 이 집단들 중 하나의 종교적 행정-관리적 중심지역할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항해한 많은 안드-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132명만이 아메리카 본토에 유일하게 도착하였다.

안드-사람들의 이주와 정복은 마지막 분산이 발생한 기원전 8,000년 내지 6,00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현저하게 강화시키면서 자기들의 본거지의 생물학적 보존물을 계속하여 고갈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각 나라들마다 유머, 예술, 모험, 음악, 그리고 제조 기술을 증진시켰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이는 계주가 있었고 농업 숙련자들이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들의 현존이 대개 옛 종족들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실천 관행들이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유럽, 인도, 중국, 아프리

is called Aryan.

78:5.4 (872.8) By 12,000 B.C. three quarters of the Andite stock of the world was resident in northern and eastern Europe, and when the later and final exodus from Mesopotamia took place, sixty-five per cent of these last waves of emigration entered Europe.

78:5.5 (873.1) The Andites not only migrated to Europe but to northern China and India, while many groups penetrated to the ends of the earth as missionaries, teachers, and traders. They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northern groups of the Saharan Sangik peoples. But only a few teachers and traders ever penetrated farther south in Africa than the headwaters of the Nile. Later on, mixed Andites and Egyptians followed down both the east and west coasts of Africa well below the equator, but they did not reach Madagascar.

78:5.6 (873.2) These Andites were the so-called Dravidian and later Aryan conquerors of India; and their presence in central Asia greatly upstepped the ancestors of the Turanians. Many of this race journeyed to China by way of both Sinkiang and Tibet and added desirable qualities to the later Chinese stocks. From time to time small groups made their way into Japan, Formosa, the East Indies, and southern China, though very few entered southern China by the coastal route.

78:5.7 (873.3) One hundred and thirty-two of this race, embarking in a fleet of small boats from Japan, eventually reached South America and by intermarriage with the natives of the Andes established the ancestry of the later rulers of the Incas. They crossed the Pacific by easy stages, tarrying on the many islands they found along the way. The islands of the Polynesian group were both more numerous and larger then than now, and these Andite sailors, together with some who followed them, biologically modified the native groups in transit. Many flourishing centers of civilization grew up on these now submerged lands as a result of Andite penetration. Easter Island was long a religious and administrative center of one of these lost groups. But of the Andites who navigated the Pacific of long ago none but the one hundred and thirty-two ever reached the mainland of the Americas.

78:5.8 (873.4) The migratory conquests of the Andites continued on down to their final dispersions, from 8000 to 6000 B.C. As they poured out of Mesopotamia, they continuously depleted the biologic reserves of their homelands while markedly strengthening the surrounding peoples. And to every nation to which they journeyed, they contributed humor, art, adventure, music, and manufacture. They were skillful domesticators of animals and expert agriculturists. For the time being, at least, their presence usually improved the religious beliefs and moral practices of the older

카 북부,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로 조용하게 퍼져 나갔던 것이다.

races. And so the culture of Mesopotamia quietly spread out over Europe, India, China, northern Africa, and the Pacific Islands.

제 6 장. 안드-사람의 마지막 분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퍼져 나가는 안드-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의 물결들이 기원전 8,000년부터 6,000년 사이에 있었다. 세 차례의 이 문화 대 이동 물결은, 동쪽으로는 고지대 부족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평야지대 주민들의 공격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밖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유프라테스 계곡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향으로 그들의 최종적인 이주를 단행하였다:

65퍼센트가 카스피 해 통로를 따라 유럽으로 들어가 정복하였고 그들과 융합되어 새로 나타난 백색 인종—청색 인종과 초기 안드-사람들의 혼혈—을 형성하였다.

10퍼센트가, 셋 사제 계급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엘람 고지대를 통과하여 이란 평원과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그들 후손은 그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그들의 아리아 동족들과 함께 인도로 몰려 들어갔다.

메소포타미아인들 중에서 10퍼센트가 북쪽으로 여행하여 신경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안드-사람-황색 인종 주민들과 섞였다. 이러한 종족 연합의 결과로 태어난 유능한 자손들 대부분이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황색 인종 중에서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자유로이 떠난 이 안드-사람들 중에서 10퍼센트가 아라비아 지역을 지나 이집트로 들어갔다.

5퍼센트의 안드-사람들은, 열등한 이웃 부족들과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 근처 해변 지역의 매우 우월한 문화를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많은 우월한 낫-사람과 아담-사람 혈통들을 대표하였다.

기원전 6,000년경에 안드-사람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주변의 산기 종족들과 소아시아의 안돈-사람들과 크게 섞인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훨씬 후대에 북쪽과 동쪽에서 침입한 자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다.

두 번째 동산의 문화 시대는, 주변에 있는 열등한 혈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명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나일 지역과 지중해의 섬들에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계속 번성하고 발전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근원지가 퇴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들의 이러한

6. THE LAST ANDITE DISPERSIONS

78:6.1 (873.5) The last three waves of Andites poured out of Mesopotamia between 8000 and 6000 B.C. These three great waves of culture were forced out of Mesopotamia by the pressure of the hill tribes to the east and the harassment of the plainsmen of the west. The inhabitants of the Euphrates valley and adjacent territory went forth in their final exodus in several directions:

78:6.2 (873.6) Sixty-five per cent entered Europe by the Caspian Sea route to conquer and amalgamate with the newly appearing white races — the blend of the blue men and the earlier Andites.

78:6.3 (873.7) Ten per cent, including a large group of the Sethite priests, moved eastward through the Elamite highlands to the Iranian plateau and Turkestan. Many of their descendants were later driven into India with their Aryan brethren from the regions to the north.

78:6.4 (874.1) Ten per cent of the Mesopotamians turned eastward in their northern trek, entering Sinkiang, where they blended with the Andite-yellow inhabitants. The majority of the able offspring of this racial union later entered China and contributed much to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e northern division of the yellow race.

78:6.5 (874.2) Ten per cent of these fleeing Andites made their way across Arabia and entered Egypt.

78:6.6 (874.3) Five per cent of the Andites, the very superior culture of the coastal district about the mouths of the Tigris and Euphrates who had kept themselves free from intermarriage with the inferior neighboring tribesmen, refused to leave their homes. This group represented the survival of many superior Nodite and Adamite strains.

78:6.7 (874.4) The Andites had almost entirely evacuated this region by 6,000 B.C., though their descendants, largely mixed with the surrounding Sangik races and the Andonites of Asia Minor, were there to give battle to the northern and eastern invaders at a much later date.

78:6.8 (874.5) The cultural age of the second garden was terminated by the increasing infiltration of the surrounding inferior stocks. Civilization moved westward to the Nile and the Mediterranean islands, where it continued to thrive and advance long after its fountainhead in Mesopotamia had deteriorated. And this unchecked influx of inferior

억제되지 않은 유입은, 나머지의 유능한 혈통의 사람들을 쫓아낸 북방의 야만인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나중에 정복당하도록 길을 열어 주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후기의 시대에서도, 그 문화를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친 이 침입자들의 현존을 계속 거부하였다.

제 7 장.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절에, 자기들이 쌓아 놓은 제방(堤防) 위로 강물이 넘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러한 주기적 홍수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연중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쪽 지방의 지형적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이 메소포타미아 계곡을 위협하게 되었다.

첫 번째 에덴이 물에 잠긴 후 수천 년 동안, 지중해 동쪽 연안 근처의 산들과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산들이 계속 솟아올랐다. 고원지대의 이러한 상승현상은 기원전 약 5,000년경에 크게 가속화 되었으며, 이것은 북쪽에 있는 산들 위에 점점 더 엄청나게 쌓이는 눈과 함께 전체 유프라테스 계곡에 매해 봄마다 전례가 없었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봄철의 홍수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거의 1,000년 동안 수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광대한 지역의 대홍수들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변하였다.

거의 5,000년이 지난 후에,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히브리 사제들은 아담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썼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의 하나가 그러한 수고를 포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홍수로 잠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발생하였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의 하나로 연결시키는, 보다 나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물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때에 대한 전설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많은 종족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때까지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노아와 방주(方舟) 그리고 홍수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사제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생명이 유란시아에 심어진 이후로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구 표면 전체를 물이 덮었던 유일한 시기는, 육지가 나타나기 전인 시생대(始生代) 동안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아람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고, 에렉 근처의 강변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홍수 철이 다가올 때가 되면, 그 강의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peoples prepared the way for the later conquest of all Mesopotamia by the northern barbarians who drove out the residual strains of ability. Even in later years the cultured residue still resented the presence of these ignorant and uncouth invaders.

7. THE FLOODS IN MESOPOTAMIA

78.7.1 (874.6) The river dwellers were accustomed to rivers overflowing their banks at certain seasons; these periodic floods were annual events in their lives. But new perils threatened the valley of Mesopotamia as a result of progressive geologic changes to the north.

78.7.2 (874.7) For thousands of years after the submergence of the first Eden the mountains about the eastern coast of the Mediterranean and those to the northwest and northeast of Mesopotamia continued to rise. This elevation of the highlands was greatly accelerated about 5000 B.C., and this, together with greatly increased snowfall on the northern mountains, caused unprecedented floods each spring throughout the Euphrates valley. These spring floods grew increasingly worse so that eventually the inhabitants of the river regions were driven to the eastern highlands. For almost a thousand years scores of cities were practically deserted because of these extensive deluges.

78.7.3 (874.8) Almost five thousand years later, as the Hebrew priests in Babylonian captivity sought to trace the Jewish people back to Adam, they found great difficulty in piecing the story together; and it occurred to one of them to abandon the effort, to let the whole world drown in its wickedness at the time of Noah's flood, and thus to be in a better position to trace Abraham right back to one of the three surviving sons of Noah.

78.7.4 (875.1) The traditions of a time when water covered the whole of the earth's surface are universal. Many races harbor the story of a world-wide flood some time during past ages. The Biblical story of Noah, the ark, and the flood is an invention of the Hebrew priesthood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There has never been a universal flood since life was established on Urantia. The only time the surface of the earth was completely covered by water was during those Archeozoic ages before the land had begun to appear.

78.7.5 (875.2) But Noah really lived; he was a wine maker of Aram, a river settlement near Erech. He kept a written record of the days of the river's rise from year to year. He brought much ridicule upon

집들을 배 모양이 되도록 나무로 지을 것과,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매일 밤마다 배에 실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조롱을 받았다. 그는 배 해마다 강 근처에 정착하고 있는 이웃에게로 가서 아주 오랫동안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연중행사로 발생하는 홍수 철이 시작되었고, 유별나게 심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강물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모든 마을들이 휩쓸려 내려갔으며; 오직 노아와 그의 친족들만이 배 위에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

이 홍수로 인하여 안드-사람의 문명이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이 홍수 기간이 끝나면서, 두 번째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수메르인 가운데에서, 그 전에 있었던 영화(榮華)의 자취가 약간 남아 있을 뿐이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인들 중의 하나를 간직한, 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지역과 북동쪽 그리고 북서쪽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훨씬 더 오래된 달라마시아 시대의 흔적들이 페르시아 만의 물 밑에 존재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동산이 지중해의 동쪽 끝 부분 밑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제 8 장. 수메르인들—마지막 안드-사람들

안드-사람의 마지막 분산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의 생물학적 중심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우월한 이 인종 중에서 하나의 작은 소수 집단이 그 강들의 입구 근처에 있는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들이었으며, 기원전 6,000년경에, 그들의 문화는 성격으로는 더욱 배타적으로 낯-사람이었고, 달라마시아의 고대 전통들을 집착하고는 있었지만, 해안 지역의 이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마지막 안드-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해당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유형들로 밝혀지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종족들은 이미 속속들이 피가 섞여 있었다.

수사가 매우 엄청나게 번영한 것은 그 홍수 기간 동안이었다. 비교적 낮은 지대에 있었던 첫 번째의 그 도시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예 기술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던 두 번째 도시가 낮은 지대의 도시를 대신하여 본부 역할을 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홍수가 줄어들게 되자, 우르가 도기(陶器) 제조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약 7,000년 전에는 우르가 페르시아 만에 위치하였는데, 그 강에 의한 퇴적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경계 지역까지 육지가 확장되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를 덜 입은 것은, 그 강들을 잘 통제하고 그 입구가 넓었기 때문이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계곡에서 평화롭게

himself by going up and down the river valley advocating that all houses be built of wood, boat fashion, and that the family animals be put on board each night as the flood season approached. He would go to the neighboring river settlements every year and warn them that in so many days the floods would come. Finally a year came in which the annual floods were greatly augmented by unusually heavy rainfall so that the sudden rise of the waters wiped out the entire village; only Noah and his immediate family were saved in their houseboat.

78:7.6 (875.3) These floods completed the disruption of Andite civilization. With the ending of this period of deluge, the second garden was no more. Only in the south and among the Sumerians did any trace of the former glory remain.

78:7.7 (875.4) The remnants of this, one of the oldest civilizations, are to be found in these regions of Mesopotamia and to the northeast and northwest. But still older vestiges of the days of Dalamatia exist under the waters of the Persian Gulf, and the first Eden lies submerged under the eastern end of the Mediterranean Sea.

8. THE SUMERIANS — LAST OF THE ANDITES

78:8.1 (875.5) When the last Andite dispersion broke the biologic backbone of Mesopotamian civilization, a small minority of this superior race remained in their homeland near the mouths of the rivers. These were the Sumerians, and by 6000 B.C. they had become largely Andite in extraction, though their culture was more exclusively Nodite in character, and they clung to the ancient traditions of Dalamatia. Nonetheless, these Sumerians of the coastal regions were the last of the Andites in Mesopotamia. But the races of Mesopotamia were already thoroughly blended by this late date, as is evidenced by the skull types found in the graves of this era.

78:8.2 (875.6) It was during the floodtimes that Susa so greatly prospered. The first and lower city was inundated so that the second or higher town succeeded the lower as the headquarters for the peculiar artcrafts of that day. With the later diminution of these floods, Ur became the center of the pottery industry. About seven thousand years ago Ur was on the Persian Gulf, the river deposits having since built up the land to its present limits. These settlements suffered less from the floods because of better controlling works and the widening mouths of the rivers.

78:8.3 (875.7) The peaceful grain growers of the

곡식을 재배하던 사람들은 투르케스탄과 이란 고원에 사는 야만인들의 침입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몹시 시달려 왔었다. 그러나 고원지대에 있는 목초지에 점점 더 심한 가뭄이 닥침으로써, 이제 공동으로 유프라테스 계곡의 침공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 침공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는데, 이는 둘러싸고 있는 이들 목축업자들과 사냥꾼들이 많은 숫자의 길들여진 말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말들의 소유로 인하여 남쪽에 있는 그들보다 부유한 이웃에 대하여 엄청난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삼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과 서부 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로 퍼져나간, 마지막 문화적 물결을 앞으로 내몰았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이 사람들 속에는, 아담아들 혈통 일부를 포함하여, 투르케스탄 북부 지역의 종족들과 섞인 보다 우수한 안드-사람 혈통들 대부분이 들어 있었다. 북쪽으로부터 도래한, 덜 진보되었지만 더욱 강력한 이 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재를 재빨리 그리고 기꺼이 흡수하였으며, 마침내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유프라테스 계곡에 정착한 혼합된 그 민족들로 발전되었다. 그들은 사라져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많은 상태들을 회복시켰는데, 그 계곡에 있던 부족들의 예술과 수메르인 문화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들은 세 번째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꾀하였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자기들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말을 탄 이 야만인들이 북동쪽으로부터 침입하여 유프라테스 계곡 전체를 차지하였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 만에 있는 그 강의 입구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나머지 안드-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았다. 이 수메르인들은 우월한 지성과 훨씬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광대한 체계를 갖춘 군사적 수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그 수로는 저수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관개 시설로도 사용되었다. 그들은 균일한 집단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뭉쳐진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서쪽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고립된 때보다도 먼 훗날까지 자기들의 종족과 민족적 고결한-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도시 집단들 중에서 어떤 것도 연합된 그 수메르인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침입한 그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수메르인들을 선생으로 그리고 행정-관리자로 신뢰하고 존중하였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서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 매우 존중을 받았으며 예술과 산업의 선생으로, 상업에 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시민 정부의 통치자로 추대되었다.

초기의 수메르인 연방 체제가 무너진 후에, 후대의 도시-국가들은 셋 자손 사제들의 후예들 중에서 종교를 이탈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 사제들이 이웃 도시들을 정복하였을 때에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였다. 사르곤의 시대 전에 있었던 후대(後代) 도시의 왕들은 신(神)에 대한 질

Euphrates and Tigris valleys had long been harassed by the raids of the barbarians of Turkestan and the Iranian plateau. But now a concerted invasion of the Euphrates valley was brought about by the increasing drought of the highland pastures. And this invasion was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se surrounding herdsmen and hunters possessed large numbers of tamed horses. It was the possession of horses which gave them a tremendous military advantage over their rich neighbors to the south. In a short time they overran all Mesopotamia, driving forth the last waves of culture which spread out over all of Europe, western Asia, and northern Africa.

78:8.4 (876.1) These conquerors of Mesopotamia carried in their ranks many of the better Andite strains of the mixed northern races of Turkestan, including some of the Adamson stock. These less advanced but more vigorous tribes from the north quickly and willingly assimilated the residue of the civilization of Mesopotamia and presently developed into those mixed peoples found in the Euphrates valley at the beginning of historic annals. They quickly revived many phases of the passing civilization of Mesopotamia, adopting the arts of the valley tribes and much of the culture of the Sumerians. They even sought to build a third tower of Babel and later adopted the term as their national name.

78:8.5 (876.2) When these barbarian cavalymen from the northeast overran the whole Euphrates valley, they did not conquer the remnants of the Andites who dwelt about the mouth of the river on the Persian Gulf. These Sumerians were able to defend themselves because of superior intelligence, better weapons, and their extensive system of military canals, which were an adjunct to their irrigation scheme of interconnecting pools. They were a united people because they had a uniform group religion. They were thus able to maintain their racial and national integrity long after their neighbors to the northwest were broken up into isolated city-states. No one of these city groups was able to overcome the united Sumerians.

78:8.6 (876.3) And the invaders from the north soon learned to trust and prize these peace-loving Sumerians as abl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They were greatly respected and sought after as teachers of art and industry, as directors of commerce, and as civil rulers by all peoples to the north and from Egypt in the west to India in the east.

78:8.7 (876.4) After the breakup of the early Sumerian confederation the later city-states were ruled by the apostate descendants of the Sethite priests. Only when these priests made conquests of the neighboring cities did they call themselves kings. The later city kings failed to form powerful

투심 때문에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각각의 도시는 그 도시 자체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하느님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영도자에게 그들 자신이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도시의 사제들에 의해서 주도된 이러한 오랫동안의 연합한 통치 시대는, 키쉬의 사제였던 사르곤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제가-통치하고, 사제에게-지배된, 그리고 각 도시마다 그 자체의 하느님과 그 자체의 제례(祭禮) 실천 관행들을 갖는 도시-국가들이 끝이 났다.

이러한 키쉬 연방 체제가 깨어진 후에는,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들 상호간에 서로 최극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주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쉬, 에렉, 우르, 그리고 수사 사이에서 여러 번 이동되었다.

기원전 약 2,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은 북부 지역에 있는 수이트들과 구이트들의 손에 의해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홍수를 막는 제방 위에 세워진, 수메르인들의 수도인 라가쉬가 함락되었다. 에렉은 아카드의 몰락 이후에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이 완성될 무렵에, 수메르인들은 북쪽에 있는 셈 족 계열에 흡수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사람들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다.

기원전 2,500년으로부터 2,000년까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방랑하는 집단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네라이트들은 피가 섞인 안돈-사람과 안드-사람 종족들의 메소포타미아 후손들 중에서 카스피 지역 집단의 최종적인 이주를 형성하였다.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몰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그 뒤에 일어난 기후 변화가 완성시켰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는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에 관한 것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본거지의 숙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우월한 민족들이 이주해 나간 것과 열등한 이웃들이 이주해 들어온 것 때문에 마침내 침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말을 탄 야만인들이 그 계곡을 정복하기 전에, 동산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퍼졌으며, 그곳에서 발효되어 유란시아의 20세기 문명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confederations before the days of Sargon because of deity jealousy. Each city believed its municipal god to be superior to all other gods, and therefore they refused to subordinate themselves to a common leader.

78:8.8 (876.5) The end of this long period of the weak rule of the city priests was terminated by Sargon, the priest of Kish, who proclaimed himself king and started out on the conquest of the whole of Mesopotamia and adjoining lands. And for the time, this ended the city-states, priest-ruled and priest-ridden, each city having its own municipal god and its own ceremonial practices.

78:8.9 (876.6) After the breakup of this Kish confederation there ensued a long period of constant warfare between these valley cities for supremacy. And the rulership variously shifted between Sumer, Akkad, Kish, Erech, Ur, and Susa.

78:8.10 (877.1) About 2,500 B.C. the Sumerians suffered severe reverses at the hands of the northern Suites and Guites. Lagash, the Sumerian capital built on flood mounds, fell. Erech held out for thirty years after the fall of Akkad. By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Hammurabi the Sumerians had become absorbed into the ranks of the northern Semites, and the Mesopotamian Andites passed from the pages of history.

78:8.11 (877.2) From 2,500 to 2,000 B.C. the nomads were on a rampage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The Nerites constituted the final eruption of the Caspian group of the Mesopotamian descendants of the blended Andonite and Andite races. What the barbarians failed to do to effect the ruination of Mesopotamia, subsequent climatic changes succeeded in accomplishing.

78:8.12 (877.3)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violet race after the days of Adam and of the fate of their homeland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Their ancient civilization finally fell due to the emigration of superior peoples and the immigration of their inferior neighbors. But long before the barbarian cavalymen conquered the valley, much of the Garden culture had spread to Asia, Africa, and Europe, there to produce the ferments which have resulted in the twentieth-century civilization of Urantia.

78:8.13 (877.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79 편 동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 078

유랜시아 책

080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79 편 동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색션

소개

- 제 1 장. 투르케스탄의 안드-사람
- 제 2 장. 안드-사람의 인도 정복
- 제 3 장. 드라비다의 인도
- 제 4 장. 아리아족의 인도 침입
- 제 5 장.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
- 제 6 장. 중국 문명의 여명
- 제 7 장. 중국에 들어온 안드-사람
- 제 8 장. 후대의 중국 문명

소개

아시아는 인간 종족의 고향이다. 안돈의-과 폰타가 태어난 곳은 이 대륙의 남부에 있는 어느 반도(半島)였으며;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이 된 고원지대에서, 그들의 후손인 바도난이 원시적인 문화 중심지를 세웠고 50만년 이상 동안 유지되었다. 인간 종족의 이 동부 중심지에서, 안돈의-혈통으로부터 산기 민족들이 갈라져 나왔고, 아시아는 그들의 최초의 고향이자 최초의 사냥터였고 최초의 전쟁터였다. 남서부 아시아는 달라마시아인, 놋-사람, 아담-사람, 그리고 안드-사람들로 이어진 문명들을 목격하였고, 이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현대 문명이 세계로 퍼져 나갔다.

제 1 장. 투르케스탄의 안드-사람

거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25,000년 이상 동안, 유라시아의 중심부에는 점점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안드-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투르케스탄의 저지대에서 안드-사람들은 서쪽으

PAPER 79
ANDITE EXPANSION IN THE
ORIENT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Andites of Turkestan
- 2. The Andite Conquest of India
- 3. Dravidian India
- 4. The Aryan Invasion of India
- 5. Red Man and Yellow Man
- 6. Dawn of Chinese Civilization
- 7. The Andites Enter China
- 8. Later Chinese Civilization

INTRODUCTION

79:0.1 (878.1) ASIA is the homeland of the human race. It was on a southern peninsula of this continent that Andon and Fonta were born; in the highlands of what is now Afghanistan, their descendant Badonan founded a primitive center of culture that persisted for over one-half million years. Here at this eastern focus of the human race the Sangik peoples differentiated from the Andonic stock, and Asia was their first home, their first hunting ground, their first battlefield. Southwestern Asia witnessed the successive civilizations of Dalamatians, Nodites, Adamites, and Andites, and from these regions the potentials of modern civilization spread to the world.

1. THE ANDITES OF TURKESTAN

79:1.1 (878.2) For over twenty-five thousand years, on down to nearly 2000 B.C., the heart of Eurasia was predominantly, though diminishingly, Andite. In the lowlands of Turkestan the Andites made the

로 향하여 내륙 호수들을 돌아 유럽으로 들어갔고, 반면에 이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 투르케스탄의 동쪽(신경)은 고대의 통로 역할을 하였고, 그보다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티베트 역시 그러한 통로였는데, 그곳들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이 민족들이 많은 산을 넘어서 황색 인종들이 사는 북부 지역으로 들어갔다. 안드-사람의 인도 침투는 투르케스탄 고지대에서 유래되어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란의 목초지영으로부터 바루키스탄을 통과하여 들어갔다. 이러한 비교적 초기의 이주들은 결코 정복이라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안드-사람이 서부 인도와 중국으로 스며들어난 것이었다.

거의 15,000년 동안, 혼합된 안드-사람 문명 중심지들이 신경에 있는 다림 강 분지와 티베트의 고원지대 남부에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안드-사람들과 안돈-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어울려 살았다. 다림 계곡은 변질되지 않은 안드-사람 문화의 동쪽 끝에 있는 전초기지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정착지를 형성하였고 동쪽으로는 진보적인 중국인들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안돈-사람들과 거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에, 다림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다; 강우량이 풍부하였다. 동쪽으로 고비 지역은 넓게 펼쳐진 목초지였으며 목축업이 점차적으로 농업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게 되자 이 지역의 문명이 쇠퇴되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자체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중앙아시아의 고지대가 점점 더 건조해짐으로써 안드-사람들은 강변과 해변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러한 건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일, 유프라테스, 인더스, 그리고 황하의 계곡들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안드-사람 문명에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등급인 상인(商人)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많은 숫자를 이루었다.

이주하는 안드-사람들이 기후 조건 때문에 사냥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옛날의 종족들이 목축업자가 됨으로써 진화해 갔던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다. 상업과 도시 생활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을 거쳐 중국과 인도의 강들에 이르는, 더욱 높게 문명화된 부족들이 도시에서 합류하기 시작하였고 생산과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안도니아는 중앙아시아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는데, 현재의 아쉬카바드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과 금속 그리고 나무와 도기(陶器)의 교역이 육지와 해상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건조 현상은 안드-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으로부터 카스피 해 남부와 동부로 대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주의 물결이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말을 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점점 더 심해지는 건조 상태는 인구를 더욱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이 사람들

westward turning around the inland lakes into Europe, while from the highlands of this region they infiltrated eastward. Eastern Turkestan (Sinkiang) and, to a lesser extent, Tibet were the ancient gateways through which these peoples of Mesopotamia penetrated the mountains to the northern lands of the yellow men. The Andite infiltration of India proceeded from the Turkestan highlands into the Punjab and from the Iranian grazing lands through Baluchistan. These earlier migrations were in no sense conquests; they were, rather, the continual drifting of the Andite tribes into western India and China.

79:1.2 (878.3) For almost fifteen thousand years centers of mixed Andite culture persisted in the basin of the Tarim River in Sinkiang and to the south in the highland regions of Tibet, where the Andites and Andonites had extensively mingled. The Tarim valley was the easternmost outpost of the true Andite culture. Here they built their settlements and entered into trade relations with the progressive Chinese to the east and with the Andonites to the north. In those days the Tarim region was a fertile land; the rainfall was plentiful. To the east the Gobi was an open grassland where the herders were gradually turning to agriculture. This civilization perished when the rain winds shifted to the southeast, but in its day it rivaled Mesopotamia itself.

79:1.3 (878.4) By 8000 B.C. the slowly increasing aridity of the highland regions of central Asia began to drive the Andites to the river bottoms and the seashores. This increasing drought not only drove them to the valleys of the Nile, Euphrates, Indus, and Yellow rivers, but it produced a new development in Andite civilization. A new class of men, the traders, began to appear in large numbers.

79:1.4 (879.1) When climatic conditions made hunting unprofitable for the migrating Andites, they did not follow the evolutionary course of the older races by becoming herders. Commerce and urban life made their appearance. From Egypt through Mesopotamia and Turkestan to the rivers of China and India, the more highly civilized tribes began to assemble in cities devoted to manufacture and trade. Adonia became the central Asian commercial metropolis, being located near the present city of Ashkhabad. Commerce in stone, metal, wood, and pottery was accelerated on both land and water.

79:1.5 (879.2) But ever-increasing drought gradually brought about the great Andite exodus from the lands south and east of the Caspian Sea. The tide of migration began to veer from northward to southward, and the Babylonian cavalymen began to push into Mesopotamia.

79:1.6 (879.3) Increasing aridity in central Asia further operated to reduce population and to render these

의 호전성을 줄여주었다; 북쪽 지역의 강우량이 줄어들음으로 말미암아 유목하던 안돈-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안드-사람들이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소위 아리아인들이 레반트와 인도 지역으로 들어간 마지막 이동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담의 혼합된 후손들의 분산이 절정에 달하였으며, 그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과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우월한 이 종족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안드-사람들이 지구의 동반구에 널리 분산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는 안돈-사람들의 이와 같은 광범위한 남쪽으로의 이동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안드-사람들이 희귀해져서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도, 우랄알타이 어족(語族)의 민족들과 티베트 민족들 속에는 안드-사람 혈통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지역에서 때때로 발견되는 금발 유형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 된다. 초기 중국 사료들은 황하 유역의 평화로운 정착지 북쪽 지역에서 붉은 색 머리를 가진 유목민들의 현존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며, 옛날에 다림 분지에 금발의 안드-사람과 갈색 머리의 몽고족들의 현존이 같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아시아 안드-사람들의 숨겨진 군사적 재능의 마지막 큰 현시활동은, 서기 1,200년에 정기스칸이 지배하는 몽고가 아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을 때였다. 그리고 옛날의 안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사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느님”의 실존을 전파하였다. 그들의 제국이 일찍 무너짐으로써, 동방과 서방 간의 문화 교류가 오랫동안 연기되었으며, 아시아에서의 유일신(唯一神) 개념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었다.

제 2 장. 안드-사람의 인도 정복

인도는 유란시아의 모든 인종들이 섞인 유일한 지역이며, 안드-사람의 침입은 마지막으로 덧붙여진 혈통을 제공하였다. 인도의 북서쪽 고지대에서 산기 종족들이 출현하였으며, 초기에 인도 대륙에 들어온 각 종족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섞임으로써, 유란시아에 이제까지 존재하였던 종족들 중에서 가장 잡다한 종족을 남겨두었다. 고대의 인도는 이주하는 인종들을 붙잡아두는 웅덩이 역할을 하였다. 그 반도의 출발 지점은, 이전에는 현재보다 약간 좁았으며, 갠지스와 인더스의 삼각주는 지난 50,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에서 있었던 최초의 인종 혼합은, 이주하는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이 토착민인 안돈-사람들과 섞인 것이었다. 이 집단은 소멸된 동부의 녹

people less warlike; and when the diminishing rainfall to the north forced the nomadic Andonites southward, there was a tremendous exodus of Andites from Turkestan. This is the terminal movement of the so-called Aryans into the Levant and India. It culminated that long dispersal of the mixed descendants of Adam during which every Asiatic and most of the island peoples of the Pacific were to some extent improved by these superior races.

79:1.7 (879.4) Thus, while they dispersed over the Eastern Hemisphere, the Andites were dispossessed of their homelands in Mesopotamia and Turkestan, for it was this extensive southward movement of Andonites that diluted the Andites in central Asia nearly to the vanishing point.

79:1.8 (879.5) But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there are traces of Andite blood among the Turanian and Tibetan peoples, as is witnessed by the blond types occasionally found in these regions. The early Chinese annals record the presence of the red-haired nomads to the north of the peaceful settlements of the Yellow River, and there still remain paintings which faithfully record the presence of both the blond-Andite and the brunet-Mongolian types in the Tarim basin of long ago.

79:1.9 (879.6) The last great manifestation of the submerged military genius of the central Asiatic Andites was in A.D. 1200, when the Mongols under Genghis Khan began the conquest of the greater portion of the Asiatic continent. And like the Andites of old, these warriors proclaimed the existence of “one God in heaven.” The early breakup of their empire long delayed cultural intercourse between Occident and Orient and greatly handicapped the growth of the monotheistic concept in Asia.

2. THE ANDITE CONQUEST OF INDIA

79:2.1 (879.7) India is the only locality where all the Urantia races were blended, the Andite invasion adding the last stock. In the highlands northwest of India the Sangik races came into existence, and without exception members of each penetrated the subcontinent of India in their early days, leaving behind them the most heterogeneous race mixture ever to exist on Urantia. Ancient India acted as a catch basin for the migrating races. The base of the peninsula was formerly somewhat narrower than now, much of the deltas of the Ganges and Indus being the work of the last fifty thousand years.

79:2.2 (879.8) The earliest race mixtures in India were a blending of the migrating red and yellow races with the aboriginal Andonites. This group was later

색 인종들의 대부분과 많은 숫자의 오렌지색 종족을 흡수함으로써 나중에 약화되었고, 청색 인종과 약간 혼합됨으로써 약하게나마 진보를 이루었지만, 많은 숫자의 남색 종족과 혼합됨으로써 크게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소위 인도의 원주민이 이러한 초기 민족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오히려 남부와 동부 지역에 사는 가장 열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지역은 초기의 안드-사람들이나 또는 후대에 나타난 그들의 아리아 동족들에 의해서 한 번도 충만하게 흡수되지 못한 곳이었다.

기원 전 20,000년경에, 서부 인도의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 피와 혼혈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란시아의 역사상 한 민족이 그토록 많은 다른 종족들의 병합으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차 산기 혈통들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오래 전의 이 인종(人種) 융광로부터 청색 인종과 적색 인종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은 실제적인 하나의 재난이었는데; 1차 산기 혈통들이 더 많았다면 훨씬 훌륭한 문명이 발생되도록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매우 많이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발달하면서, 적색 인종은 아메리카에서 자멸하였고, 청색 인종은 유럽에서 활동하였으며, 아담의 초기 후손들(그리고 후대의 후손들 대부분)은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 짙은 색깔의 인종들과는 어울리기를 싫어하였다.

기원 전 약 15,000년경에, 늘어나는 인구에 의한 압력이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란으로부터 실제로 최초의 안드-사람 이동이 인도 쪽으로 일어났다. 15세기가 넘는 동안, 우월한 이 민족들이 바루키스탄 고지대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왔고, 인더스와 갠지스 계곡으로 퍼져나갔으며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북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안드-사람 압력은, 남부와 동부에 있던 열등한 사람들을 쫓아내 버마와 남부 중국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침입자들은 종족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인도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주로 지형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 북쪽에만 붐비고 있던 인구 압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가 영토는 더욱 줄어들었고,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만일 그 부근에 이주해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다면, 열등한 민족은 사망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우월한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이 훨씬 발전된 문명을 성취하였을 것이다.

사실 그대로, 초기의 이 안드-사람 정복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종족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종족 흡수의 물결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사람들은 기원 전 10,000년경에 사라졌지만, 전체의 민족은 이들이 흡수됨으로써 괄목할만한 증진을 이룩하였다.

weakened by absorbing the greater portion of the extinct eastern green peoples as well as large numbers of the orange race, was slightly improved through limited admixture with the blue man, but suffered exceedingly through assimilation of large numbers of the indigo race. But the so-called aborigines of India are hardly representative of these early people; they are rather the most inferior southern and eastern fringe, which was never fully absorbed by either the early Andites or their later appearing Aryan cousins.

79:2.3 (880.1) By 20,000 B.C. the population of western India had already become tinged with the Adamic blood, and never in the history of Urantia did any one people combine so many different races. But it was unfortunate that the secondary Sangik strains predominated, and it was a real calamity that both the blue and the red man were so largely missing from this racial melting pot of long ago; more of the primary Sangik strains would have contributed very much toward the enhancement of what might have been an even greater civilization. As it developed, the red man was destroying himself in the Americas, the blue man was disporting himself in Europe, and the early descendants of Adam (and most of the later ones) exhibited little desire to admix with the darker colored peoples, whether in India, Africa, or elsewhere.

79:2.4 (880.2) About 15,000 B.C. increasing population pressure throughout Turkestan and Iran occasioned the first really extensive Andite movement toward India. For over fifteen centuries these superior peoples poured in through the highlands of Baluchistan, spreading out over the valleys of the Indus and Ganges and slowly moving southward into the Deccan. This Andite pressure from the northwest drove many of the southern and eastern inferiors into Burma and southern China but not sufficiently to save the invaders from racial obliteration.

79:2.5 (880.3) The failure of India to achieve the hegemony of Eurasia was largely a matter of topography; population pressure from the north only crowd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southward into the decreasing territory of the Deccan, surrounded on all sides by the sea. Had there been adjacent lands for emigration, then would the inferiors have been crowded out in all directions, and the superior stocks would have achieved a higher civilization.

79:2.6 (880.4) As it was, these earlier Andite conquerors made a desperate attempt to preserve their identity and stem the tide of racial engulfment by the establishment of rigid restrictions regarding intermarriage. Nonetheless, the Andites had become submerged by 10,000 B.C., but the whole mass of the people had been markedly improved by this absorption.

79:2.7 (880.5)

종족 혼합은,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진보적인 문명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항상 유리한 것이지만, 만약에 열등한 요소를 가진 종족이 우세할 경우에는, 그러한 성취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열등한 사람들과의 안전한 간격 안에서, 우월한 혈통이 재생산하여야만 오로지 유지될 수 있다. 우월한 자들의 재생산이 줄어들면서, 열등한 자들이 제약 없이 번식하면, 문화적인 문명은 반드시 자멸하게 된다.

안드-사람 정복자들이 그 당시 그들의 숫자보다 3배가 되었다면, 또는 그들이 혼합된 오렌지색-녹색-남색 주민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3분의 1을 쫓아내었거나 과멸시켰더라면, 인도는 문화적 문명의 세계적인 중심지들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투르케스탄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으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간 메소포타미아인들의 후반기 무리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을 것이다.

제 3 장. 드라비다의 인도

인도를 정복한 안드-사람과 원주민 혈통의 결합은 결국에는 드라비다인이라 불린 혼합된 민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다 초기의 그리고 보다 순수한 드라비다인들은 문화적 성취를 위한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안드-사람 유전자가 점점 더 희박해짐에 따라 계속 약화(弱化)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2,000년 전에 인도 문명을 싹트게 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피가 이렇게 적은 양만이 주입되었지만, 사회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촉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혼합된 혈통은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문명을 즉각적으로 꽃피웠다.

인도가 정복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라비다의 안드-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와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접촉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개통된 해안 도로와 카라반 행로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고, 산악지대 때문에 서쪽과의 교통이 훨씬 활발하기는 하였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도에 있는 민족들의 우월한 문화적 종교적 성향들은 드라비다인이 지배한 초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안드-사람 침입과 후대의 아리아인 침입의 두 차례에 걸쳐, 수많은 셋 족속 사제들이 인도에 들어왔다는 사실에도 부분적으로 기인된다. 인도의 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유일신 론의 가느다란 빛은 두 번째 동산의 아담-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유래되었다.

이미 기원 전 16,000년경에 100명에 이르는 셋 자손 사제 무리가 인도에 들어왔으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에 대한 종교적 정복을 거의 이룩하였다. 그

19:2.1 (880.5) Race mixture is always advantageous in that it favors versatility of culture and makes for a progressive civilization, but if the inferior elements of racial stocks predominate, such achievements will be short-lived. A polyglot culture can be preserved only if the superior stocks reproduce themselves in a safe margin over the inferior. Unrestrained multiplication of inferiors, with decreasing reproduction of superiors, is unfailingly suicidal of cultural civilization.

79:2.8 (880.6) Had the Andite conquerors been in numbers three times what they were, or had they driven out or destroyed the least desirable third of the mixed orange-green-indigo inhabitants, then would India have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centers of cultural civilization and undoubtedly would have attracted more of the later waves of Mesopotamians that flowed into Turkestan and thence northward to Europe.

3. DRAVIDIAN INDIA

79:3.1 (881.1) The blending of the Andite conquerors of India with the native stock eventually resulted in that mixed people which has been called Dravidian. The earlier and purer Dravidians possessed a great capacity for cultural achievement, which was continuously weakened as their Andite inheritance became progressively attenuated. And this is what doomed the budding civilization of India almost twelve thousand years ago. But the infusion of even this small amount of the blood of Adam produced a marked acceleration in social development. This composite stock immediately produced the most versatile civilization then on earth.

79:3.2 (881.2) Not long after conquering India, the Dravidian Andites lost their racial and cultural contact with Mesopotamia, but the later opening up of the sea lanes and the caravan routes re-established these connections; and at no time within the last ten thousand years has India ever been entirely out of touch with Mesopotamia on the west and China to the east, although the mountain barriers greatly favored western intercourse.

79:3.3 (881.3) The superior culture and religious leanings of the peoples of India date from the early times of Dravidian domination and are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so many of the Sethite priesthood entered India, both in the earlier Andite and in the later Aryan invasions. The thread of monotheism running through the religious history of India thus stems from the teachings of the Adamites in the second garden.

79:3.4 (881.4) As early as 16,000 B.C. a company of one hundred Sethite priests entered India and very nearly achieved the religious conquest of the western half of that polyglot people. But their

려나 그들의 종교는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 5,000년이 지나기 전에,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한 그들의 교리들은 화신(火神)에 대한 삼원적 상징으로 퇴화되었다.

안드-사람 이주가 끝나기까지, 7,000년 이상 동안, 인도에 사는 주민들의 종교적 지위는 세계 대부분의 상태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지도적인 세계의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상업적 문명을 산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민족들에 의한 안드-사람들의 완벽한 침몰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운명은 아마도 실현되었을 것이다.

드라비다의 문화적 중심지들은 강이 있는 계곡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개 인더스와 갠지스 지역이었으며, 데칸에서는 3개의 큰 강물이 동부 가트 지역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부 가트의 해변을 따라 형성된 정착지들은 수메르와 해상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드라비다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육상과 해상의 광대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최초의 민족들에 속하였다. 기원 전 7,000년경에는 낙타 행렬이 메소포타미아의 먼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여행하였다; 드라비다의 선박은 해안을 따라 활동하였는데, 아라비아 해를 지나 페르시아 만에 있는 수메르의 도시들까지 이르렀으며, 해상에서 모험을 감행하여 뱃길 만(灣)을 지나 동인도 제도(諸島)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해상 여행자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알파벳과 글 쓰는 기술이 수메르에서 수입되었다.

이러한 상업적인 관계들은 세계적인 문화를 더욱 다양화 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도시 생활의 많은 진보와 심지어는 사치품들이 일찍부터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중에 나타난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안드-사람 동족들이 산기 종족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을 드라비다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잘 발달된 문명은 발견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라비다 사람들은 우월한 문명을 건설하였다. 그것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데칸 지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왔다.

제 4 장. 아리아족의 인도 침입

안드-사람의 두 번째 인도 침투는, 그리스도 이전(以前) 2,500년 부근의 거의 5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아리아인 침입이었다. 이 이주(移住)는 안드-사람들의 고향인 투르케스탄으로부터 마치 막 탈출을 이룩하였다.

초기의 아리아인 중심지들은 인도의 북쪽 지역 절반 부분에 산재해 있었는데, 특별히 북서부에 많았다. 이 침입자들은 그 나라를 완벽하게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나중에 히말라야 지

religion did not persist. Within five thousand years their doctrines of the Paradise Trinity had degenerated into the triune symbol of the fire god.

79:3.5 (881.6) But for more than seven thousand years, down to the end of the Andite migrations, the religious status of the inhabitants of India was far above that of the world at large. During these times India bid fair to produce the leading cultural, religious, philosophic, and commercial civilization of the world. And but for the complete submergence of the Andites by the peoples of the south, this destiny would probably have been realized.

79:3.6 (881.6) The Dravidian centers of culture were located in the river valleys, principally of the Indus and Ganges, and in the Deccan along the three great rivers flowing through the Eastern Ghats to the sea. The settlements along the seacoast of the Western Ghats owed their prominence to maritime relationships with Sumeria.

79:3.7 (881.7) The Dravidians were among the earliest peoples to build cities and to engage in an extensive export and import business, both by land and sea. By 7000 B.C. camel trains were making regular trips to distant Mesopotamia; Dravidian shipping was pushing coastwise across the Arabian Sea to the Sumerian cities of the Persian Gulf and was venturing on the waters of the Bay of Bengal as far as the East Indies. An alphabet, together with the art of writing, was imported from Sumeria by these seafarers and merchants.

79:3.8 (881.8) These commercial relationships greatly contributed to the further diversification of a cosmopolitan culture, resulting in the early appearance of many of the refinements and even luxuries of urban life. When the later appearing Aryans entered India, they did not recognize in the Dravidians their Andite cousins submerged in the Sangik races, but they did find a well-advanced civilization. Despite biologic limitations, the Dravidians founded a superior civilization. It was well diffused throughout all India and has survived on down to modern times in the Deccan.

4. THE ARYAN INVASION OF INDIA

79:4.1 (882.1) The second Andite penetration of India was the Aryan invasion during a period of almost five hundred years in the middle of the third millennium before Christ. This migration marked the terminal exodus of the Andites from their homelands in Turkestan.

79:4.2 (882.2) The early Aryan centers were scattered over the northern half of India, notably in the northwest. These invaders never completed the conquest of the country and subsequently met

방을 제외한 전체의 반도를 휩쓸게 되었던 남부의 드라비다 사람들에 의해서 흡수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리아인들은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인종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데칸에서의 그들의 영향은 인종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었다. 북부 인도의 소위 아리아인 혈통이라 불리는 아주 강한 인내심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현존에 기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대의 정복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이전 100년경에 이르기까지, 아리아인 혈통의 계속적인 침투가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유입은 헬라 민족들의 출정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갠지스 평원에서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이 결국에는 혼합되어서 하나의 높은 문화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심지는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온 북동쪽으로부터의 기여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인도에서는, 아리아인들의 반(半)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전제적이고 군주적인 정부 형태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사회 조직들이 때때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가장 독특한 사회적 특징은, 종족의 정체성을 영존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아리아인들에 의해 설립된 위대한 사회적 특권계급을 끈질기게 고수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교한 특권계급 체계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네 개의 위대한 특권계급들 중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아리아인 정복자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한 백성들과 인종적으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찮은 노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특권계급인 선생-사제 계급은 셋-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의 브라만 계급은, 비록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저명한 조상들의 것과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동산의 사제들의 문화적 직계 후손들이다.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동산에 있었던 종교의 남아있는 전통들을 보존해 왔던 그대로 신(神)에 대한 자기들의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만 사제들은, 아리아인들의 멸종 이후에 데칸의 열등한 종교와 갑작스럽게 접촉함으로써 세워진 다신교적(多神敎的) 타성을 전혀 이겨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한 종교들의 노예화시키는 미신들의 굴레에 속박되고 말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는 초기 시대에 징조를 보여 왔던 고차원의 문명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의 영적 각성이 인도에서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이슬람교 침투 전에

their undoing in this neglect since their lesser numbers made them vulnerable to absorption by the Dravidians of the south, who subsequently overran the entire peninsula except the Himalayan provinces.

79:4.3 (882.3) The Aryans made very little racial impression on India except in the northern provinces. In the Deccan their influence was cultural and religious more than racial. The greater persistence of the so-called Aryan blood in northern India is not only due to their presence in these regions in greater numbers but also because they were reinforced by later conquerors, traders, and missionaries. Right on down to the first century before Christ there was a continuous infiltration of Aryan blood into the Punjab, the last influx being attendant upon the campaigns of the Hellenistic peoples.

79:4.4 (882.4) On the Gangetic plain Aryan and Dravidian eventually mingled to produce a high culture, and this center was later reinforced by contributions from the northeast, coming from China.

79:4.5 (882.5) In India many types of social organizations flourished from time to time, from the semidemocratic systems of the Aryans to despotic and monarchical forms of government. But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society was the persistence of the great social castes that were instituted by the Aryans in an effort to perpetuate racial identity. This elaborate caste system has been preserved on down to the present time.

79:4.6 (882.6) Of the four great castes, all but the first were established in the futile effort to prevent racial amalgamation of the Aryan conquerors with their inferior subjects. But the premier caste, the teacher-priests, stems from the Sethites; the Brahmins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are the lineal cultural descendants of the priests of the second garden, albeit their teachings differ greatly from those of their illustrious predecessors.

79:4.7 (882.7) When the Aryans entered India, they brought with them their concepts of Deity as they had been preserved in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religion of the second garden. But the Brahman priests were never able to withstand the pagan momentum built up by the sudden contact with the inferior religions of the Deccan after the racial obliteration of the Aryans. Thus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fell into the bondage of the enslaving superstitions of inferior religions; and so it was that India failed to produce the high civilization which had been foreshadowed in earlier times.

79:4.8 (882.8) The spiritual awakening of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did not persist in India,

이미 소멸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더 위대한 고타마가 나타나 모든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보수적인 영적 통찰력의 무감각한 영향력 밑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던 다재다능한 한 민족의 문화적 잠재성에 대한 결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문화는 생물학적인 기초 위에서 존재하지만, 특권계급만으로는 아리아인 문화를 영속시킬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종교, 참된 종교는 인간 형제 신분에 기초를 둔 우월한 문명을 설립하도록 사람들을 내모는 높은 에너지의 필요 불가결한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

인도에 관한 이야기가 안드-사람의 정복에 관한 것과 결국에는 보다 오래된 진화적 민족들 속으로 스며들어간 것에 관계되는 반면, 동부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산기들 특히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과 관계된다. 이 두 종족들은 청색 인종이 유럽에서 크게 발달이 뒤떨어진 저질(低質)의 네안데르탈 혈통과의 혼합을 대부분 겪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첫 번째 산기 유형의 우월한 잠재를 간직하고 있었다.

초기의 네안데르탈인들이 유라시아 전체에 퍼진 반면, 동쪽 부분은 저질의 동물적 혈통들에 의해 더 많이 오염되었다. 이러한 유인원 유형의 사람들은 다섯 번째 빙하기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는데, 바로 그 빙하가 동부 아시아로 나아가는 산기 이주를 가록 막았다. 그리고 적색 인종이 인도의 고원지대를 돌아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들은 북동쪽 아시아에 유인원 유형의 사람들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백색 인종들의 부족 체계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먼저 형성되었으며, 산기들의 중앙아시아 중심지로부터 이주한 최초의 인종이었다. 열등한 네안데르탈 혈통들은, 나중에 이주하는 황색 인종에 의해서 파멸되거나 아니면 본토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나 적색 인종은, 황색 인종의 부족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0,000년 동안 동부 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다.

300,000년 전에 황색 인종의 본대가 남쪽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이주하여 중국으로 들어갔다. 매 1,000년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갔지만, 티베트로 이주한 동족들과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주치지 않았다.

인구 압력이 증가됨으로서 황색인종을 북쪽-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고 적색 인종의 사냥터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침해는 선천적인 종족간의 반목과 함께 호전성을 증가시켜 절정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하여 아시아의 더 먼 곳에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혹독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having died out even before the Mohammedan invasion. But someday a greater Gautama may arise to lead all India in the search for the living God, and then the world will observe the fruition of the cultural potentialities of a versatile people so long comatose under the benumbing influence of an unprogressing spiritual vision.

79:4.9 (883.1) Culture does rest on a biologic foundation, but caste alone could not perpetuate the Aryan culture, for religion, true religion, is the indispensable source of that higher energy which drives men to establish a superior civilization based on human brotherhood.

5. RED MAN AND YELLOW MAN

79:5.1 (883.2) While the story of India is that of Andite conquest and eventual submergence in the older evolutionary peoples, the narrative of eastern Asia is more properly that of the primary Sangiks, particularly the red man and the yellow man. These two races largely escaped that admixture with the debased Neanderthal strain which so greatly retarded the blue man in Europe, thus preserving the superior potential of the primary Sangik type.

79:5.2 (883.3) While the early Neanderthals were spread out over the entire breadth of Eurasia, the eastern wing was the more contaminated with debased animal strains. These subhuman types were pushed south by the fifth glacier, the same ice sheet which so long blocked Sangik migration into eastern Asia. And when the red man moved northeast around the highlands of India, he found northeastern Asia free from these subhuman types. The tribal organization of the red races was formed earlier than that of any other peoples, and they were the first to migrate from the central Asian focus of the Sangiks. The inferior Neanderthal strains were destroyed or driven off the mainland by the later migrating yellow tribes. But the red man had reigned supreme in eastern Asia for almost one hundred thousand years before the yellow tribes arrived.

79:5.3 (883.4)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ago the main body of the yellow race entered China from the south as coastwise migrants. Each millennium they penetrated farther and farther inland, but they did not make contact with their migrating Tibetan brethren until comparatively recent times.

79:5.4 (883.5) Growing population pressure caused the northward-moving yellow race to begin to push into the hunting grounds of the red man. This encroachment, coupled with natural racial antagonism, culminated in increasing hostilities, and thus began the crucial struggle for the fertile lands of farther Asia.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이야기는 유란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와도 같다. 2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 두 우월한 인종들은 더욱 격심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다. 초기의 투쟁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색 인종이 우세하여, 습격을 담당하는 그들의 무리들은 황색 인종의 정착지를 황폐화시키는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황색 인종은 전쟁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기민하였으며, 동포들과 평화롭게 사는 상당한 능력을 일찍부터 현시되어 있었는데, 연합 안에 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중국인들이었다. 적색 부족들은 내부적인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윽고 그들은 북쪽을 향한 자신들의 진군을 가차 없이 계속한 냉혹한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손길에서 반복되는 패배로 고통을 맛보기 시작했다.

10만 년 전에, 격감된 적색 인종은, 뒤로는 마지막 빙하기의 퇴각하는 얼음 덩어리와 싸워야 했으며, 베링 해협을 지나 육로를 통하여 동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 부족들은 야박스러운 아시아 대륙 해안을 서슴없이 떠나게 되었다. 순수한 적색 인종이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난 지 85,000년이 지났지만, 오랜 기간의 투쟁은 승리를 거둔 황색 인종에게 유전적인 흔적을 남겨두었다. 안돈-사람인 시베리아인들과 함께, 북부 지역의 중국 민족들은 적색 종족을 많이 닮았으며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유익을 얻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담과 이브의 안드-사람 후손과도 전혀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아담의 도래보다 약 50,000년 전에 그들의 고향이었던 아시아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다. 안드-사람의 이주 기간 동안, 순수한 적색 혈통의 사람들이 방랑하는 부족, 농사를 약간 실천한 사냥꾼이 되면서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 이 종족들과 문화 집단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첫 1,000년이 끝날 무렵, 유럽의 백색 인종들에 의해 그들이 발견될 때까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래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거의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때까지, 북쪽에 있는 적색 인종 부족들이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키모들이 백색 인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은, 안드-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유일한 인간 혈통이었다. 최고로 오래된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나모나론톤이었지만, 이것은 오래 전인 기원 전 35,000년경에 사라졌다. 중앙아메리카인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의 산악지대에서는, 보다 후대의 그리고 보다 오래 지속된 문명들이, 주로 적색 인종이지만 황색과 오랜적색 그리고 청색 인종이 상당히 섞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안드-사람 혈통의 흔적이 페루에서도 발견되는 하지만, 이 문명들은 산악 종족들의 진화적

79:5.5 (883.6) The story of this agelong contest between the red and yellow races is an epic of Urantia history. For over two hundred thousand years these two superior races waged bitter and unrelenting warfare. In the earlier struggles the red men were generally successful, their raiding parties spreading havoc among the yellow settlements. But the yellow man was an apt pupil in the art of warfare, and he early manifested a marked ability to live peaceably with his compatriots; the Chinese were the first to learn that in union there is strength. The red tribes continued their internecine conflicts, and presently they began to suffer repeated defeats at the aggressive hands of the relentless Chinese, who continued their inexorable march northward.

79:5.6 (883.7) One hundred thousand years ago the decimated tribes of the red race were fighting with their backs to the retreating ice of the last glacier, and when the land passage to the West, over the Bering isthmus, became passable, these tribes were not slow in forsaking the inhospitable shores of the Asiatic continent. It is eighty-five thousand years since the last of the pure red men departed from Asia, but the long struggle left its genetic imprint upon the victorious yellow race. The northern Chinese peoples, together with the Andonite Siberians, assimilated much of the red stock and were in considerable measure benefited thereby.

79:5.7 (884.1) The North American Indians never came in contact with even the Andite offspring of Adam and Eve, having been dispossessed of their Asiatic homelands some fifty thousand years before the coming of Adam. During the age of Andite migrations the pure red strains were spreading out over North America as nomadic tribes, hunters who practiced agriculture to a small extent. These races and cultural groups remained almost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remainder of the world from their arrival in the Americas down to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of the Christian era, when they were discovered by the white races of Europe. Up to that time the Eskimos were the nearest to white men the northern tribes of red men had ever seen.

79:5.8 (884.2) The red and the yellow races are the only human stocks that ever achieved a high degree of civilization apart from the influences of the Andites. The oldest Amerindian culture was the Onamonalonton center in California, but this had long since vanished by 35,000 B.C. In Mexico, Central America, and in the mountains of South America the later and more enduring civilizations were founded by a race predominantly red but containing a considerable admixture of the yellow, orange, and blue.

79:5.9 (884.3) These civilizations were evolutionary products of the Sangiks, notwithstanding that

인 산물이었다.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소수의 폴리네시아 안드-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서반구(西半球)의 민족들은 그리스도 이후 첫 1,000년이 끝날 무렵까지 세계의 다른 인종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멜기세덱의 기원적 계획에서는, 아담의 순수 혈통을 가진 백만 명의 후손들이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제 6 장. 중국 문명의 여명

적색 인종이 북아메리카로 쫓겨난 지 얼마 후에, 확대되는 중국인들은 동부 아시아의 강 유역들로부터 안돈-사람들을 몰아내었는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투르크스탄으로 밀어내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곧 안드-사람들의 우월한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버마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들이 혼합되고 섞여져서 그 지역에 계속적인 문명을 창출하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라진 녹색 인종이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남아 있었다.

많은 다른 종족들이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쪽의 섬들이 그 다음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섬들이, 높은 비율의 녹색과 남색 혈통을 간직한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북쪽의 섬들은 안돈-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었으며, 나중에는 높은 비율의 황색 혈통과 적색 혈통을 포함하는 종족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일본 민족의 조상들은 기원 전 12,000년까지 본토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가, 그 때 그들은 북쪽에 있는 중국 부족들이 남쪽 해안을 따라 강력하게 밀려 내려옴으로써 쫓겨나게 되었다. 그들의 최종적인 탈출은 인구 압력에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신성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 족장의 주도권에 기인된 것이었다.

인도와 레반트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황색 인종의 다양한 부족들은 해안선과 강줄기를 따라서 초기의 중심지들을 건설하였다. 연안에 있는 주거지들은 나중에 홍수가 증가하면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었고, 강줄기의 변경은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지탱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20,0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조상들은 12개에 달하는 원시적인 문화와 교육의 강력한 중심지들을 건설하였었는데, 특별히 황하와 양쯔 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때 이 중심지들은 신경과 티베트에서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피가 섞인 우월한 민족들이 도착됨으로 인하여 보강되기 시작하였다. 티베트로부터 양쯔 강 계곡으로의 이주는 북쪽에서 일어난 것처럼 광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중심지들도 다룬 분지의 중심지들만큼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이동 물결은 상당한 양의 안드-사람 피를 동

traces of Andite blood reached Peru. Excepting the Eskimos in North America and a few Polynesian Andites in South America, the peoples of the Western Hemisphere had no contact with the rest of the world until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In the original Melchizedek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Urantia races it had been stipulated that one million of the pure-line descendants of Adam should go to upstep the red men of the Americas.

6. DAWN OF CHINESE CIVILIZATION

79:6.1 (884.4) Sometime after driving the red man across to North America, the expanding Chinese cleared the Andonites from the river valleys of eastern Asia, pushing them north into Siberia and west into Turkestan, where they were soon to come in contact with the superior culture of the Andites.

79:6.2 (884.5) In Burma and the peninsula of Indo-China the cultures of India and China mixed and blended to produce the successive civilizations of those regions. Here the vanished green race has persisted in larger proportion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79:6.3 (884.6) Many different races occupied the islands of the Pacific. In general, the southern and then more extensive islands were occupied by peoples carrying a heavy percentage of green and indigo blood. The northern islands were held by Andonites and, later on, by races embracing large proportions of the yellow and red stocks. The ancestors of the Japanese people were not driven off the mainland until 12,000 B.C., when they were dislodged by a powerful southern-coastwise thrust of the northern Chinese tribes. Their final exodus was not so much due to population pressure as to the initiative of a chieftain whom they came to regard as a divine personage.

79:6.4 (885.1) Like the peoples of India and the Levant, victorious tribes of the yellow man established their earliest centers along the coast and up the rivers. The coastal settlements fared poorly in later years as the increasing floods and the shifting courses of the rivers made the lowland cities untenable.

79:6.5 (885.2) Twenty thousand years ago the ancestors of the Chinese had built up a dozen strong centers of primitive culture and learning, especially along the Yellow River and the Yangtze. And now these centers began to be reinforced by the arrival of a steady stream of superior blended peoples from Sinkiang and Tibet. The migration from Tibet to the Yangtze valley was not so extensive as in the north, neither were the Tibetan centers so advanced as those of the Tarim basin. But both movements carried a certain amount of

쪽으로 강 정착지에 옮겨주었다.

고대 황색 인종의 우월성은 네 가지 큰 요소들로부터 기인되었다:

1. 유전적 요인. 유럽에 있는 그들의 청색 사촌들과는 달리, 적색 종족과 황색 종족 모두는 저하된 인간 핏줄과 혼합되는 것을 대체적으로 피해왔다. 우월한 적색 혈통과 안돈의-혈통이 약간 섞인 북부의 중국인들은, 안드-사람 혈통이 상당히 유입됨으로써 곧 유익을 얻게 되었다. 남부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녹색 인종의 흡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수난을 당하였고, 반면에 나중에는 드라비다-안드-사람 침입으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도망 나온 열등한 민족들 무리가 침투함으로써 훨씬 약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는 북부 지역의 인종과 남부 지역의 인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2. 사회적 요인. 황색 인종은 자기들끼리의 평화에 대한 가치를 일찍부터 습득하였다. 그들의 내부적인 평화 유지 능력은 인구 증가에 막대하게 기여하였으며 그들의 문명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만들었다. 기원 전 25,000년부터 5,000년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집단적 문명은 중국의 중앙과 북부 지역에 있었다. 황색 인종은 종족의 결속을 이룩한 최초의 종족이었다.—큰 규모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문명을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기원 전 15,000년의 중국인은 공격적인 군국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과거를 지나치게 존경함으로써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인구수가 1,200만 명 미만이었으며, 간단한 신체적 표현으로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알찬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실제적인 국가를 형성하였는데, 역사 시대에 이룩한 그들의 정치적 연합보다도 훨씬 더 연합되었고 균질성을 갖고 있었다.

3. 영적 요인. 안드-사람이 이주하던 시기 동안,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비교적 더 영적인 민족들 중의 하나였다. 신랑톤이 전한 하나의 진리에 대한 경배에 오랫동안 집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족들보다 가장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진보적이고 발전된 종교에 의한 자각이 때로는 문화적 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인도가 쇠약해졌을 때, 중국은 진리를 최극 신(神)으로 모시는 한 종교의 활기찬 자각 밑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진리 경배는 자연 법칙과 인류의 잠재에 대한 연구와 대담한 탐구를 유도하였다. 6,000년 전까지도 중국인들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여전히 예민한 학생들이었고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4. 지형적 요인. 중국은 서쪽으로는 산들에 의해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오직 북쪽에서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적색 인종의 시대부터 후대의 안드-사람 자손들이 도래할 때까지, 북쪽 지역은

Andite blood eastward to the river settlements.

79:6.6 (885.3) The superiority of the ancient yellow race was due to four great factors:

79:6.7 (885.4) 1. *Genetic*. Unlike their blue cousins in Europe, both the red and yellow races had largely escaped mixture with debased human stocks. The northern Chinese, already strengthened by small amounts of the superior red and Andonic strains, were soon to benefit by a considerable influx of Andite blood. The southern Chinese did not fare so well in this regard, and they had long suffered from absorption of the green race, while later on they were to be further weakened by the infiltration of the swarms of inferior peoples crowded out of India by the Dravidian-Andite invasion. And today in China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races.

79:6.8 (885.5) 2. *Social*. The yellow race early learned the value of peace among themselves. Their internal peaceableness so contributed to population increase as to insure the spread of their civilization among many millions. From 25,000 to 5000 B.C. the highest mass civilization on Urantia was in central and northern China. The yellow man was first to achieve a racial solidarity — the first to attain a large-scale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civilization.

79:6.9 (885.6) The Chinese of 15,000 B.C. were aggressive militarists; they had not been weakened by an overreverence for the past, and numbering less than twelve million, they formed a compact body speaking a common language. During this age they built up a real nation, much more united and homogeneous than their political unions of historic times.

79:6.10 (885.7) 3. *Spiritual*. During the age of Andite migrations the Chinese were among the more spiritual peoples of earth. Long adherence to the worship of the One Truth proclaimed by Singlangton kept them ahead of most of the other races. The stimulus of a progressive and advanced religion is often a decisive factor in cultural development; as India languished, so China forged ahead under the invigorating stimulus of a religion in which truth was enshrined as the supreme Deity.

79:6.11 (885.8) This worship of truth was provocative of research and fearless exploration of the laws of nature and the potentials of mankind. The Chinese of even six thousand years ago were still keen students and aggressive in their pursuit of truth.

79:6.12 (885.9) 4. *Geographic*. China is protected by the mountains to the west and the Pacific to the east. Only in the north is the way open to attack, and from the days of the red man to the coming of the later descendants of the Andites, the north was

어떤 공격적인 종족에 의해서도 점령되지 않았었다.

또한 산에 의한 장벽이 없었다면, 그리고 영적 문화에 있어서 후대의 퇴보가 없었다면, 황색인종은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이주하는 안드-사람의 대부분을 이끌어 들일 수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렇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세계 문명을 재빨리 지배하였을 것이다.

제 7 장. 중국에 들어온 안드-사람

약 15,000년 전에, 상당한 숫자의 안드-사람들이 티 타오 고개를 넘었고 칸수에 있는 중국인 정착지들 중에서 황하 상류 계곡으로 퍼져 나갔다. 이윽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호난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착지들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서쪽으로부터 침투한 사람들은 반(半)은 안돈-사람이고 나머지 반은 안드-사람이었다.

황하 유역을 따라 이루어진 북쪽의 문화 중심지들은, 양쯔 강 유역의 남쪽 정착지들보다 항상 더 진보를 이룩하였다. 소수의 무리이기는 하였지만 우월한 이 펠사자들이 도착된 후 수천 년 내에, 황하 유역의 정착지들은 양쯔 강 유역의 마을들보다 앞서 나갔고, 그 후에 유지되었던 모든 남부에 있는 그들의 동족들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그곳에 훨씬 더 많은 안드-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월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직 그들과의 혼합으로 더욱 다재다능한 혈통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북부의 중국인들은 그들의 선천적인 유능한 마음들을 약간 자극하기에 겨우 충분할 만큼 안드-사람 혈통을 받아들였지만, 북부에 있는 백색인종들의 특징처럼 끊임없이 탐구심을 갖는 호기심이 불타오를 정도로 충분하게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안드-사람 유전의 더욱 제한적인 주입은 산적 유형의 타고난 안정성을 적게 교란시키고 있었다.

후대에 이동한 안드-사람은 향상된 특정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특별히 서쪽으로부터 이동한 마지막 물결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들은 북부 중국인들의 경제적 교육적 실천 관행들을 크게 증진시켰으며; 반면에 황색인종의 종교적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그들의 먼 후손들이 나중에 일어난 영적 각성에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에덴과 달라마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드-사람 전승들이 중국의 전승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초기 중국의 전설들은 “하느님들의 땅”이 서쪽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국 민족은 기원 전 10,000년이 지날 때까지, 투르케스탄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후대의

not occupied by any aggressive race.

79:6.13 (886.1) And but for the mountain barriers and the later decline in spiritual culture, the yellow race undoubtedly would have attracted to itself the larger part of the Andite migrations from Turkestan and unquestionably would have quickly dominated world civilization.

7. THE ANDITES ENTER CHINA

79:7.1 (886.2)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the Andites, in considerable numbers, were traversing the pass of Ti Tao and spreading out over the upper valley of the Yellow River among the Chinese settlements of Kansu. Presently they penetrated eastward to Honan, where the most progressive settlements were situated. This infiltration from the west was about half Andonite and half Andite.

79:7.2 (886.3) The northern centers of culture along the Yellow River had always been more progressive than the southern settlements on the Yangtze. Within a few thousand years after the arrival of even the small numbers of these superior mortals, the settlements along the Yellow River had forged ahead of the Yangtze villages and had achieved an advanced position over their brethren in the south which has ever since been maintained.

79:7.3 (886.4) It was not that there were so many of the Andites, nor that their culture was so superior, but amalgamation with them produced a more versatile stock. The northern Chinese received just enough of the Andite strain to mildly stimulate their innately able minds but not enough to fire them with the restless, exploratory curiosity so characteristic of the northern white races. This more limited infusion of Andite inheritance was less disturbing to the innate stability of the Sangik type.

79:7.4 (886.5) The later waves of Andites brought with them certain of the cultural advances of Mesopotamia;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last waves of migration from the west. They greatly improved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practices of the northern Chinese; and while their influence upon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yellow race was short-lived, their later descendants contributed much to a subsequent spiritual awakening. But the Andite traditions of the beauty of Eden and Dalamatia did influence Chinese traditions; early Chinese legends place “the land of the gods” in the west.

79:7.5 (886.6) The Chinese people did not begin to build cities and engage in manufacture until after

안드-사람들이 도착한 후까지,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이 새로운 혈통의 주입은, 황색 인종의 문명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월한 중국 혈통의 잠재적인 경향이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호난에서 쉐んに 이르기까지, 진보된 문명의 잠재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금속 가공과 모든 제조 기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시간 계산과 천문학 그리고 정부 관리-행정에 대한 중국의 방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방법 일부가 비슷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중심지들 사이의 상업적 관계로부터 기인되었다. 중국의 상인들은 수메르인 시대에 이미 육로를 통하여 투르케스탄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여행하였다. 이러한 교환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다.—유프라테스 계곡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고, 갠지스 평원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그리스도 이전 3,000년경의 유목민 침입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의 카라반 길을 지나가는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 8 장. 후대의 중국 문명

적색 인종이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시달린 반면, 중국인들 속에서의 국가적인 상태의 발전은 그들이 아시아를 속속들이 정복할 때까지 연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종족의 결속을 이룩할 수 있는 많은 잠재를 갖고 있었지만, 외적인 공격에 항상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응되는 계속적인 강렬한 충동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발전되지 못하고 말았다.

동부 아시아 정복의 완료와 함께, 고대의 군사적 체제가 서서히 집대성이-해체되었다—과거의 전쟁들은 잊혀졌다. 적색 인종과 투쟁하였던 이야기들 중에서, 활 쏘는 민족들과의 오래 전의 투쟁에 대한 희미한 전승만이 남아 있었다.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농업으로 돌아섰고,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동시에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땅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그 나라의 평화로움을 증대시키는 일에 더욱 기여하였다.

과거의 성취(현재는 어느 정도 쇠퇴한)에 대한 의식과 압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보수적 경향 그리고 잘 발달된 가정생활이 조상 숭배를 탄생시켰는데, 조상에 대한 존경이 극에 달한 나머지 경배와 비슷한 상태로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로마 문명이 붕괴된 후 거의 5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백색 인종들 가운데에서 매우 비슷한 태도가 유행된 적이 있었다.

성랑톤이 가르쳤던 “하나의 진리”에 대한 믿

10,000 B.C., subsequent to the climatic changes in Turkestan and the arrival of the later Andite immigrants. The infusion of this new blood did not add so much to the civilization of the yellow man as it stimulated the further and rapid development of the latent tendencies of the superior Chinese stocks. From Honan to Shensi the potentials of an advanced civilization were coming to fruit. Metalworking and all the arts of manufacture date from these days.

79:7.6 (886.7) The similarities between certain of the early Chinese and Mesopotamian methods of time reckoning, astronomy,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were due to the commer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remotely situated centers. Chinese merchants traveled the overland routes through Turkestan to Mesopotamia even in the days of the Sumerians. Nor was this exchange one-sided — the valley of the Euphrates benefited considerably thereby, as did the peoples of the Gangetic plain. But the climatic changes and the nomadic invasions of the third millennium before Christ greatly reduced the volume of trade passing over the caravan trails of central Asia.

8. LATER CHINESE CIVILIZATION

79:8.1 (887.1) While the red man suffered from too much warfare, it is not altogether amiss to say that the development of statehood among the Chinese was delayed by the thoroughness of their conquest of Asia. They had a great potential of racial solidarity, but it failed properly to develop because the continuous driving stimulus of the ever-present danger of external aggression was lacking.

79:8.2 (887.2) With the completion of the conquest of eastern Asia the ancient military state gradually disintegrated — past wars were forgotten. Of the epic struggle with the red race there persisted only the hazy tradition of an ancient contest with the archer peoples. The Chinese early turned to agricultural pursuits, which contributed further to their pacific tendencies, while a population well below the land-man ratio for agriculture still further contributed to the growing peacefulness of the country.

79:8.3 (887.3) Consciousness of past achievements (somewhat diminished in the present), the conservatism of an overwhelmingly agricultural people, and a well-developed family life equaled the birth of ancestor veneration, culminating in the custom of so honoring the men of the past as to border on worship. A very similar attitude prevailed among the white races in Europe for some five hundred years following the disruption of Greco-Roman civilization.

79:8.4 (887.4) The belief in, and worship of, the “One

음과 경배는 한 번도 전반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고도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이미 설립된 것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빛을 잃게 되었다. 황색 인종의 천재는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것을 보존하는 쪽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진보하던 문명이 정체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기원 전 4,000년으로부터 500년 사이에, 황색 인종의 정치적인 재(再)통일이 기록되었지만, 양쯔 강과 황하에 있는 중심지들의 문화적 연합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후대의 부족 집단들의 정치적인 재통일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에 대한 사회적 견해는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조상 경배와 늘어나는 숫자의 방언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군사적 활동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과도한 평화를 누려 왔었다.

발전된 국가 체제로 일찍부터 발전될 가능성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인종은 문명의 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농업과 원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센시와 호난에서는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그 해결을 위해 집단적인 협동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관개(灌溉)와 토양-보존의 문제들은, 상호의존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나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간의 평화 증진을 가져왔다.

곧, 기록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학교들이 설립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식이 보급되도록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인쇄술이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의문자 체제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지식의 숫자가 매우 제한되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회적인 표준화와 종교-철학적 독단화에 대한 진행이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 발전은, 자연 경배를 포함하는 미신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하게 되었지만, 하느님에 대한 실제적 개념의 남겨져 있던 흔적이 상제(上帝)에 대한 황제로서의 경배 속에 간직된 채로 남아 있었다.

조상 숭배의 중대한 약점은 뒤쪽을-바라보는 철학을 조장하는 점이다. 지난날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난날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현재 안에 회고적(回顧的)인 철학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들을 유일한 진리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서, 각각의 사람 세대들마다—심지어는 각각의 세대들마다—새로운 표현을 이룩한다.

Truth” as taught by Singlangton never entirely died out; but as time passed, the search for new and higher truth became overshadowed by a growing tendency to venerate that which was already established. Slowly the genius of the yellow race became diverted from the pursuit of the unknown to the preservation of the known.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e stagnation of what had been the world's most rapidly progressing civilization.

79:8.5 (887.5) Between 4000 and 500 B.C. the political reunification of the yellow race was consummated, but the cultural union of the Yangtze and Yellow river centers had already been effected. This political reunification of the later tribal groups was not without conflict, but the societal opinion of war remained low; ancestor worship, increasing dialects, and no call for military action for thousands upon thousands of years had rendered this people ultrapeaceful.

79:8.6 (887.6) Despite failure to fulfill the promise of an early development of advanced statehood, the yellow race did progressively move forward in the realization of the arts of civilization, especially in the realms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The hydraulic problems faced by the agriculturists in Shensi and Honan demanded group co-operation for solution. Such irrigation and soil-conservation difficulties contributed in no small measure to the development of interdependence with the consequent promotion of peace among farming groups.

79:8.7 (887.7) Soon developments in writing,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on a previously unequalled scale. But the cumbersome nature of the ideographic writing system placed a numerical limit upon the learned classes despite the early appearance of printing. And above all else, the process of social standardization and religio-philosophic dogmatization continued apace.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ancestor veneration became further complicated by a flood of superstitions involving nature worship, but lingering vestiges of a real concept of God remained preserved in the imperial worship of Shang-ti.

79:8.8 (888.1) The great weakness of ancestor veneration is that it promotes a backward-looking philosophy. However wise it may be to glean wisdom from the past, it is folly to regard the past as the exclusive source of truth. Truth is relative and expanding; it *lives* always in the present, achieving new expression in each generation of men — even in each human life.

조상 숭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태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유용성이다. 중국 문명의 놀랄만한 안정성과 지속성은 최고의 상태로 화합된 가족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문명은 가족의 효과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의존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가족은 사회적 중요성을 달성하였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의(意義)를 성취하였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장하는 조상 경배의 예배종파에 의해서 강요되는, 자식으로서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충성은, 우월한 가족 관계 형성과 영구적인 가족 집단의 형성을 보장하였으며, 문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촉진시켰다:

1. 재산과 부(富)의 보존.
2. 한 세대 이상의 체험이 쌓이게 함.
3. 과거의 기술과 과학에 있어서의 자녀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4. 의무에 대한 강한 인식의 발달, 도덕성 증진,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의 증강.

안드-사람들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었던, 중국 문명의 발달기는 그리스도 이전 6세기의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반(半)종교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승은 과거의 진화에 대한 어렴풋한 기록을 보존하였다; 어머니 중심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가족으로의 전환, 농업의 확립, 고안건축의 발달, 산업의 개시—이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비슷한 설명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미개한 차원으로부터 우월한 민족이 훌륭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원시적인 농업사회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적 체제로 발전되었는데, 그 체제는 도시들, 제조업, 금속 가공, 상업 교역, 정부, 기록, 수학, 예술, 인쇄 등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황색 인종의 고대 문명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내려오면서 지속되어 왔다. 최초의 중요한 발전이 중국 문명에서 발생한 이래 거의 40,000년이 지났으며, 여러 차례 퇴보의 과정이 있었지만, 한의 아들들이 세운 문명은 20세기 시대까지 내려오는 계속적인 진보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보여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백색 인종들의 기계적인 발전과 종교적인 발전이 하나의 높은 체제를 이룩하고는 있지만, 가족의 충성심이나 집단적 윤리 또는 개인적 도덕성에 있어서는 중국인보다 뛰어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고대의 문화는 인간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많은 인간 존재들이 그 업적에 의

79:8.9 (888.2) The great strength in a veneration of ancestry is the value that such an attitude places upon the family. The amazing stability and persistence of Chinese culture is a consequence of the paramount position accorded the family, for civilization is directly dependent on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family; and in China the family attained a social importance, even a religious significance, approached by few other peoples.

79:8.10 (888.3) The filial devotion and family loyalty exacted by the growing cult of ancestor worship insured the building up of superior family relationships and of enduring family groups, all of which facilitated the following factors in the preservation of civilization:

- 79:8.11 (888.4) 1. Conservation of property and wealth.
- 79:8.12 (888.5) 2. Pooling of the experience of more than one generation.
- 79:8.13 (888.6) 3. Efficient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arts and sciences of the past.
- 79:8.14 (888.7) 4. Development of a strong sense of duty, the enhancement of morality, and the augmentation of ethical sensitivity.

79:8.15 (888.8) The formative period of Chinese civilization, opening with the coming of the Andites, continues on down to the great ethical, moral, and semireligious awakening of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And Chinese tradition preserves the hazy record of the evolutionary past; the transition from mother- to father-family,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e,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he initiation of industry — all these are successively narrated. And this story presents, with greater accuracy than any other similar account, the picture of the magnificent ascent of a superior people from the levels of barbarism. During this time they passed from a primitive agricultural society to a higher social organization embracing cities, manufacture, metalworking, commercial exchange, government, writing, mathematics, art, science, and printing.

79:8.16 (888.9) And so the ancient civilization of the yellow race has persisted down through the centuries. It is almost forty thousand years since the first important advances were made in Chinese culture, and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trogressions, the civilization of the sons of Han comes the nearest of all to presenting an unbroken picture of continual progression right on down to the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echanical and religious developments of the white races have been of a high order, but they have never excelled the Chinese in family loyalty, group ethics, or personal morality.

79:8.17 (888.10) This ancient culture has contributed much to human happiness; millions of human

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 위대한 운명은 수세기 동안 과거에 얻었던 명예로 만족해 왔지만, 인간 존재의 초월적인 목표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하여, 영원한 진보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도 각성을 하고 있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beings have lived and died, blessed by its achievements. For centuries this great civilization has rested upon the laurels of the past, but it is even now reawakening to envision anew the transcendent goals of mortal existence, once again to take up the unremitting struggle for never-ending progress.

79:8.18 (888.11)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80 편 서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 079

유랜시아 책

081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0 편 서방에서의 안드-사람 확대

색션

소개

- 제 1 장.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사람들
- 제 2 장. 기후와 지형의 변화
- 제 3 장. 크로마뇽 청색 인종
- 제 4 장. 유럽의 안드-사람 침입
- 제 5 장. 안드-사람의 북 유럽 정복
- 제 6 장. 나일 근처의 앤다이트
- 제 7 장. 지중해 섬들의 안드-사람
- 제 8 장. 다뉴브의 안돈-사람
- 제 9 장. 세 종류 백색 인종

소개

유럽의 청색 인종은, 비록 자체적으로 거대한 문화적 문명을 성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담과 섞인 혈통들이 후대의 안드-사람 침입자들과 혼합되었을 때, 보라색 인종과 그 후손인 안드-사람의 시대 이후로 유랜시아에 계속 나타났던 것들 중에서 활동적인 문명을 달성하기에 가장 유능한 혈통들 중의 하나를 창출한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현대의 백색 민족들은, 산기 종족들, 적색 인종 그리고 황색 인종의 일부 그리고 특별히 청색 인종과 섞이게 되었던 아담의-혈통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였다. 모든 백색 인종들 속에는 상당한 비율의 순수한 안돈-사람 혈통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기의 닛-사람 혈통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

제 1 장.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사람들

PAPER 80

ANDITE EXPANSION IN THE OCCID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damites Enter Europe
2.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3. The Cro-Magnoid Blue Man
4. The Andite Invasions of Europe
5. The Andite Conquest of Northern Europe
6. The Andites along the Nile
7. Andites of the Mediterranean Isles
8. The Danubian Andonites
9. The Three White Races

INTRODUCTION

80:0.1 (889.1) ALTHOUGH the European blue man did not of himself achieve a great cultural civilization, he did supply the biologic foundation which, when its Adamized strains were blended with the later Andite invaders, produced one of the most potent stocks for the attainment of aggressive civilization ever to appear on Urantia since the times of the violet race and their Andite successors.

80:0.2 (889.2) The modern white peoples incorporate the surviving strains of the Adamic stock which became admixed with the Sangik races, some red and yellow but more especially the blue. There is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 original Andonite stock in all the white races and still more of the early Nodite strains.

1. THE ADAMITES ENTER EUROPE

마지막 안드-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계곡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의 동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험가들, 선생들, 상인들, 그리고 전사들로 유럽에 들어갔다. 보라색 인종이 활동하던 초기 시대 동안에는 지중해 해구(海溝)가 지브랄터 협곡과 시칠리아 연결육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사람들의 아주 초기 해상 교역 일부는 이러한 내륙 호수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북쪽으로부터 온 청색 인종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들이 동쪽으로부터 온 노드-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지중해 해구의 동쪽 지역에서, 노드-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광범위한 문화들 중의 하나를 이미 이룩하고 있었으며, 이 중심지들로부터 유럽의 남부 쪽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들어갔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넓은 머리를 가진 노드-사람-안돈-사람 시리아인 들은, 서서히 융기되는 나일 삼각주(三角洲)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도기(陶器) 제조술과 농업을 매우 일찍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그들은 양, 염소, 소, 그리고 길들여진 다른 동물들을 수입하였으며 크게 개선된 금속 가공 방법을 들여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러한 산업의 중심지였다.

30,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꾸준한 흐름 줄기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을 따라 예술과 문화가 전해져서 나일 계곡에 풍성하게 심어졌다. 그러나 엄청난 숫자의 사하라 민족들이 유입되어 나일 강 주변의 초기 문명을 크게 악화시켰기 때문에 약 15,000년 전에는 이집트의 문화 차원이 가장 낮은 차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초기 시대에는 아담-사람들의 서부 이주를 방해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사하라는 목동들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넓은 목초지였다. 사하라에 사는 이 사람들은 제조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사멸된 녹색 그리고 오렌지색 인종들의 혈통을 많이 간직한 남색-흑색 집단에 속하였다. 그러나 습기가 많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번영하고 평화로운 문명을 소멸시키고 그 땅이 융기되기 전까지, 그들은 아주 제한된 양의 보라색 유전을 받았다.

아담의 피가 대부분의 인간 종족에게 공유되었지만, 다른 종족들보다 더 확실하게 제공된 어떤 종족들이 있었다. 인도의 혼합된 종족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짙은 색의 사람들은 아담-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적색 종족이 멀리 이주하여 아메리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적색 종족과 자유롭게 섞였을 것이며, 황색 종족과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되었겠지만, 황색 종족도 마찬가지로 너무 먼 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심이나 이타심이 작용하였을 때, 또는 유프라테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유럽에 있는 청색 종족들과 연합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선택하였던 것이다.

80:1.1 (889.3) Before the last Andites were driven out of the Euphrates valley, many of their brethren had entered Europe as adventurers, teachers, traders, and warriors. During the earlier days of the violet race the Mediterranean trough was protected by the Gibraltar isthmus and the Sicilian land bridge. Some of man's very early maritime commerce was established on these inland lakes, where blue men from the north and the Saharans from the south met Nodites and Adamites from the east.

80:1.2 (889.4) In the eastern trough of the Mediterranean the Nodites had established one of their most extensive cultures and from these centers had penetrated somewhat into southern Europe but more especially into northern Africa. The broad-headed Nodite-Andonite Syrians very early introduced pottery and agriculture in connection with their settlements on the slowly rising Nile delta. They also imported sheep, goats, cattle, and other domesticated animals and brought in greatly improved methods of metalworking, Syria then being the center of that industry.

80:1.3 (889.5) For more than thirty thousand years Egypt received a steady stream of Mesopotamians, who brought along their art and culture to enrich that of the Nile valley. But the ingress of large numbers of the Sahara peoples greatly deteriorated the early civilization along the Nile so that Egypt reached its lowest cultural level some fifteen thousand years ago.

80:1.4 (889.6) But during earlier times there was little to hinder the westward migration of the Adamites. The Sahara was an open grazing land overspread by herders and agriculturists. These Saharans never engaged in manufacture, nor were they city builders. They were an indigo-black group which carried extensive strains of the extinct green and orange races. But they received a very limited amount of the violet inheritance before the upthrust of land and the shifting water-laden winds dispersed the remnants of this prosperous and peaceful civilization.

80:1.5 (890.1) Adam's blood has been shared with most of the human races, but some secured more than others. The mixed races of India and the darker peoples of Africa were not attractive to the Adamites. They would have mixed freely with the red man had he not been far removed in the Americas, and they were kindly disposed toward the yellow man, but he was likewise difficult of access in faraway Asia. Therefore, when actuated by either adventure or altruism, or when driven out of the Euphrates valley, they very naturally chose union with the blue races of Europe.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청색 인종은, 초기에 이주하던 아담-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종교적 실천 관행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보라색 인종과 청색 인종은 서로 성적 끌어당김을 매우 많이 느꼈다. 청색 인종들 중에서 최상인 자들은, 아담-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 받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모든 청색 남성은 어떤 아담-사람 여인의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고 예술적인 상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으며, 우월한 청색 여인의 최고 소원은 아담-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이주하는 에덴의 아들들은 청색 인종들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형의 사람들과 서서히 연합하게 되었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네안테르탈 혈통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면서 자기들의 문화적 실천 관행들을 활성화시켰다. 열등한 혈통들을 제거시키는 방법과 병합된 이러한 종족 혼합 기법은, 12가지 이상의 강건하고 진보적인 집단의 우월한 청색 인종들을 형성하였는데, 그들 중의 하나에게 너희는 크로마뇽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이유들과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이주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초기 물결이 거의 배타적으로 유럽을 향해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현대 유럽 문명이 앞서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이었다.

제 2 장. 기후와 지형의 변화

유럽으로 들어간 보라색 인종의 초기 확대는, 상당히 갑작스러운 특정한 기후 그리고 지형 변화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북쪽의 얼음 덩어리들이 물러감에 따라, 수분이 많은 바람이 서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거대한 사하라의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불모의 사막 지대로 바뀌었다.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며 눈동자가 검고 머리가 길쭉한, 거대한 사하라 고원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건조 현상 때문에 흩어졌다.

보다 순수한 남색 인종의 집단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프리카의 밀림 지대에 이르렀으며, 그 후로 그들은 그곳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비교적 더 많이 혼합된 집단들이 세 방향으로 퍼져 나갔는데: 우월한 부족들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스페인으로 갔고 그곳에서부터 인접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후대에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머리가 긴 갈색 인종들을 형성하였다. 가장 진보가 안 된 집단들은 사하라 고원의 동쪽으로 향하였고 아라비아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거쳐 멀리 떨어진 실론 섬까지 이르렀다. 가운데에 해당되는 집단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나일 계곡에 이르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데칸으로부터 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통과하고 지중해의 양쪽 해안선을 따라 흩어졌던 현대의 민족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친족관계가 나타나

80:1.6 (890.2) The blue men, then dominant in Europe, had no religious practices which were repulsive to the earlier migrating Adamites, and there was great sex attraction between the violet and the blue races. The best of the blue men deemed it a high honor to be permitted to mate with the Adamites. Every blue man entertained the ambition of becoming so skillful and artistic as to win the affection of some Adamite woman, and it was the highest aspiration of a superior blue woman to receive the attentions of an Adamite.

80:1.7 (890.3) Slowly these migrating sons of Eden united with the higher types of the blue race, invigorating their cultural practices while ruthlessly exterminating the lingering strains of Neanderthal stock. This technique of race blending, combined with the elimination of inferior strains, produced a dozen or more virile and progressive groups of superior blue men, one of which you have denominated the Cro-Magnons.

80:1.8 (890.4) For these and other reasons, not the least of which was more favorable paths of migration, the early waves of Mesopotamian culture made their way almost exclusively to Europe. And it was these circumstances that determined the antecedents of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2.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80:2.1 (890.5) The early expansion of the violet race into Europe was cut short by certain rather sudden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With the retreat of the northern ice fields the water-laden winds from the west shifted to the north, gradually turning the great open pasture regions of Sahara into a barren desert. This drought dispersed the smaller-statured brunets, dark-eyed but long-headed dwellers of the great Sahara plateau.

80:2.2 (890.6) The purer indigo elements moved southward to the forests of central Africa, where they have ever since remained. The more mixed groups spread out in three directions: The superior tribes to the west migrated to Spain and thence to adjacent parts of Europe, forming the nucleus of the later Mediterranean long-headed brunet races. The least progressive division to the east of the Sahara plateau migrated to Arabia and thence through northern Mesopotamia and India to faraway Ceylon. The central group moved north and east to the Nile valley and into Palestine.

80:2.3 (890.7) It is this secondary Sangik substratum that suggests a certain degree of kinship among the modern peoples scattered from the Deccan

는 것은, 이러한 2차 산각의 뿌리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날 무렵에, 잉글랜드가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덴마크가 바다 밑으로부터 융기되었으며, 지중해의 서쪽 해구(海溝)를 막는 지브롤터 해협이 지진의 영향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이 내륙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대서양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이윽고 시칠리아 연결육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중해라는 하나의 바다가 탄생되었고 대서양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자연의 대격변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많은 거주지들이 홍수를 당하였으며,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생명의 손실이 야기되었다.

지중해 분지가 이렇게 흡수됨으로써, 아담-사람들의 서쪽 방향 이주는 즉각적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사하라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그들은 증가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에덴의 북동쪽으로 탈출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확대되어 있었던 카스피해와 많은 산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세대 동안 아담-사람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에 두루 흩어지게 된 그들의 정착지 주위에서 사냥과 목축을 하고 주변의 땅을 경작하였다. 웅장한 이 민족은 자기들의 영역을 서서히 유럽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때 동쪽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사람들은 청색 인종의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보다 수천 년 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제 3 장. 크로마뇽 청색 인종

청색 인종의 고대 문화 중심지들은 유럽의 모든 강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재는 솜므강만이 빙하기 이전 동안에 흘렀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우리가 청색 인종이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여러 유형의 종족들이 있었다. 35,000년 전에, 유럽의 청색 인종들은 이미 적색 그리고 황색 인종 혈통들을 갖고 있는 크게 혼합된 민족이었으며, 반면에 대서양 해안 지역과 지금-현재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안돈-사람의 피를 흡수한 상태였고, 남쪽 지역에서는 사하라의 민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그 종족 집단들을 낱알이 열거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아담의-이후 초기 시대인 이때의 유럽 문명은, 청색 인종의 활동력과 예술이 아담-사람들의 창조적인 상상력과 혼합되어 나타난 독특한 것이었다. 청색 인종들은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담-사람의 문화적 그리고 영적 지위를 엄청나게 저하시켰다. 허다한 자들이 처녀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through Iran, Mesopotamia, and along both shores of the Mediterranean Sea.

80:2.4 (890.8) About the time of these climatic changes in Africa, England separated from the continent, and Denmark arose from the sea, while the isthmus of Gibraltar, protecting the western basin of the Mediterranean, gave way as the result of an earthquake, quickly raising this inland lake to the level of the Atlantic Ocean. Presently the Sicilian land bridge submerged, creating one sea of the Mediterranean and connecting it with the Atlantic Ocean. This cataclysm of nature flooded scores of human settlements and occasioned the greatest loss of life by flood in all the world's history.

80:2.5 (891.1) This engulfment of the Mediterranean basin immediately curtailed the westward movements of the Adamites, while the great influx of Saharans led them to seek outlets for their increasing numbers to the north and east of Eden. As the descendants of Adam journeyed northward from the valleys of the Tigris and Euphrates, they encountered mountainous barriers and the then expanded Caspian Sea. And for many generations the Adamites hunted, herded, and tilled the soil around their settlements scattered throughout Turkestan. Slowly this magnificent people extended their territory into Europe. But now the Adamites enter Europe from the east and find the culture of the blue man thousands of years behind that of Asia since this region has been almost entirely out of touch with Mesopotamia.

3. THE CRO-MAGNOID BLUE MAN

80:3.1 (891.2) The ancient centers of the culture of the blue man were located along all the rivers of Europe, but only the Somme now flows in the same channel which it followed during preglacial times.

80:3.2 (891.3) While we speak of the blue man as pervading the European continent, there were scores of racial types. Even thirty-five thousand years ago the European blue races were already a highly blended people carrying strains of both red and yellow, while on the Atlantic coastlands and in the regions of present-day Russia they had absorbed a considerable amount of Andonite blood and to the south were in contact with the Saharan peoples. But it would be fruitless to attempt to enumerate the many racial groups.

80:3.3 (891.4) The European civilization of this early post-Adamic period was a unique blend of the vigor and art of the blue men with the creative imagination of the Adamites. The blue men were a race of great vigor, but they greatly deteriorated the cultu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e Adamites.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latter to impress their religion

담-사람들에게는, 크로마뇽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몇 만 년 동안 유럽에서 종교는, 인도와 이집트에서 이룩된 종교적 발전에 비교해 볼 때 낮고 쇠퇴한 시기에 있었다.

청색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거래에서 완전하게 정직했고, 혼합된 아담-사람들의 성(性)적 타락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처녀신분을 존중하였고,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부족할 경우에만 일부 다처제를 실천하였다.

이 크로마뇽 민족들은 용감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종족이었다. 그들은 어린이를 교양(敎養)시키는 일에 있어서 효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는 부모들 둘 모두 참여하였으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봉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었다. 각각의 어린이는 동굴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부식물을 만드는 일과 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신중하게 받았다. 어려서부터, 여자들은 가사에 있어서의 기술과 미숙한 농업에 잘 숙달되어 있었고, 반면에 남자들은 노련한 사냥꾼과 전사들이었다.

청색 인종들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음식을 모았다;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숙련자들이었다. 그들은 돌도끼를 만들어 나무들을 베고, 통나무로 오두막을 지었는데, 일부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붕을 덮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아직도 그와 비슷하게 오두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남부 지대의 크로마뇽인들은 대개 돌로 지은 집과 동굴에서 살았다.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밤마다 동굴 입구에 파수자를 세워서 동사(凍死)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용감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예술 감각이 뛰어났으며; 아담의과 혼합됨으로써 창조적인 상상력이 갑자기 증진되었다. 청색 인종의 예술은, 짙은 색의 피부를 가진 종족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스페인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인, 약 15,000년 전에 최고로 발달되었다.

약 15,000년 전에 알프스 삼림이 광대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유럽의 사냥꾼들은 세계적인 풍성한 사냥터가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한 것과 동일한 기후 조건에 의해서 해안과 강변으로 쫓겨 가고 있었다.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자, 유럽의 광활한 목초지는 삼림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도 거대한 기후 변경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종족들은 사냥을 하던 상태에서 목축을 하는 상태로 바뀌었고, 일부는 어부 또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문화적인 진보를 가져온 반면, 특정한 생물학적 퇴보를 가져왔다. 그 전에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우월한 부족들이 높은 유형의 포로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보기에 열등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절시켰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평범한 포로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후대에 크로마뇽인 유형의 인

upon the Cro-Magnoids because of the tendency of so many to cheat and to debauch the maidens. For ten thousand years religion in Europe was at a low ebb as compared with the developments in India and Egypt.

80:3.4 (891.5) The blue men were perfectly honest in all their dealings and were wholly free from the sexual vices of the mixed Adamites. They respected maidenhood, only practicing polygamy when war produced a shortage of males.

80:3.5 (891.6) These Cro-Magnon peoples were a brave and farseeing race. They maintained an efficient system of child culture. Both parents participated in these labors, and the services of the older children were fully utilized. Each child was carefully trained in the care of the caves, in art, and in flint making. At an early age the women were well versed in the domestic arts and in crude agriculture, while the men were skilled hunters and courageous warriors.

80:3.6 (891.7) The blue men were hunters, fishers, and food gatherers; they were expert boatbuilders. They made stone axes, cut down trees, erected log huts, partly below ground and roofed with hides. And there are peoples who still build similar huts in Siberia. The southern Cro-Magnons generally lived in caves and grottoes.

80:3.7 (892.1) It was not uncommon during the rigors of winter for their sentinels standing on night guard at cave entrances to freeze to death. They had courage, but above all they were artists; the Adamic mixture suddenly accelerated creative imagination. The height of the blue man's art was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before the days when the darker-skinned races came north from Africa through Spain.

80:3.8 (892.2) About fifteen thousand years ago the Alpine forests were spreading extensively. The European hunters were being driven to the river valleys and to the seashores by the same climatic coercion that had turned the world's happy hunting grounds into dry and barren deserts. As the rain winds shifted to the north, the great open grazing lands of Europe became covered by forests. These great and relatively sudden climatic modifications drove the races of Europe to change from open-space hunters to herders, and in some measure to fishers and tillers of the soil.

80:3.9 (892.3) These changes, while resulting in cultural advances, produced certain biologic retrogressions. During the previous hunting era the superior tribes had intermarried with the higher types of war captives and had unvaryingly destroyed those whom they deemed inferior. But as they commenced to establish settlements and engage in agriculture and commerce, they began

중 전체를 엄청나게 타락시킨 것은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들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퇴보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최종적이고도 총체적인 침입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크로마뇽인 유형을 재빨리 흡수하면서 그리고 백색 인종들의 문명을 시작하면서, 동부로부터의 새로운 기운을 받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4 장. 유럽의 안드-사람 침입

안드-사람들이 한결같은 흐름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주요 침입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말을 타고 들어왔다. 일부의 사람들은 에게 해의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 다뉴브 계곡으로 유럽에 들어왔으나, 초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은 불가 강과 돈 강이 있는 목초지 지역을 건너는 북쪽의 길을 통하여 북서부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 사이에 때를 지어 이동한 안드-사람들은 북쪽으로부터 유럽에 들어왔는데, 러시아의 강들과 발틱 해의 길을 통하여 시베리아로부터 이주하였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안드-사람 부족들과 즉시 동화되었다.

순수한 보라색 인종의 초기 확대는, 그들보다 후대의 반(半)군사적이고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안드-사람 후손들보다는 훨씬 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였지만; 노드-사람들은 호전적이었다. 이 혈통들의 연합은, 나중에 산직 종족들과 섞이면서, 실제적인 군사적 정복을 이룩한 유능하고 공격적인 안드-사람들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서방에서 안드-사람들이 통치하도록 만든 진화적 요인은 말(馬)이었다. 흩어지던 안드-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그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동성의 장점을 갖게 되었는데, 말을 탄 안드-사람의 마지막 집단은 재빨리 카스피 해를 돌아서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안드-사람의 물결은 너무도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떨어진 물결은 모두 집대성이-해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후대의 물결들은 너무도 빨리 진행되었으므로 밀착된 집단을 이루면서 유럽에 도착하였고, 어느 정도 높은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이전 6,000년부터 7,000년 동안에, 거칠게 말을 다루는 안드-사람 기수(騎手)들이 출현하였을 때, 중국과 유프라테스 지역을 제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는, 매우 제한된 문화적 진보를 10,000년 동안 이룩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의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색 인종의 가장 우수한 자를 흡수하고 가장 열등한 자를 멸절시켜가면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혼합되었다. 이들이 소위 노르딕이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그리고 앵글로색슨 민족

to save many of the mediocre captives as slaves. And it was the progeny of these slaves that subsequently so greatly deteriorated the whole Cro-Magnon type. This retrogression of culture continued until it received a fresh impetus from the east when the final and en masse invasion of the Mesopotamians swept over Europe, quickly absorbing the Cro-Magnon type and culture and initiating the civilization of the white races.

4. THE ANDITE INVASIONS OF EUROPE

80:4.1 (892.4) While the Andites poured into Europe in a steady stream, there were seven major invasions, the last arrivals coming on horseback in three great waves. Some entered Europe by way of the islands of the Aegean and up the Danube valley, but the majority of the earlier and purer strains migrated to northwestern Europe by the northern route across the grazing lands of the Volga and the Don.

80:4.2 (892.5)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invasions a horde of Andonites entered Europe from the north, having come from Siberia by way of the Russian rivers and the Baltic. They were immediately assimilated by the northern Andite tribes.

80:4.3 (892.6) The earlier expansions of the purer violet race were far more pacific than were those of their later semimilitary and conquest-loving Andite descendants. The Adamites were pacific; the Nodites were belligerent. The union of these stocks, as later mingled with the Sangik races, produced the able, aggressive Andites who made actual military conquests.

80:4.4 (892.7) But the horse was the evolutionary factor which determined the dominance of the Andites in the Occident. The horse gave the dispersing Andites the hitherto nonexistent advantage of mobility, enabling the last groups of Andite cavalymen to progress quickly around the Caspian Sea to overrun all of Europe. All previous waves of Andites had moved so slowly that they tended to disintegrate at any great distance from Mesopotamia. But these later waves moved so rapidly that they reached Europe as coherent groups, still retaining some measure of higher culture.

80:4.5 (893.1) The whole inhabited world, outside of China and the Euphrates region, had made very limited cultural progress for ten thousand years when the hard-riding Andite horsemen made their appearance in the sixth and seventh millenniums before Christ. As they moved westward across the Russian plains, absorbing the best of the blue man and exterminating the worst, they became blended into one people. These were the ancestors of the so-called Nordic races, the

들의 선조가 되는 인종들의 조상이었다.

우월한 청색 혈통들이 북부 유럽 전체를 통하여 안드-사람들에 의해 오래지 않아서 충분히 흡수되었다. 오직 라플란드에서만(그리고 브리타니에서 어느 정도) 옛 안돈-사람들이 비슷한 정도만이라도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제 5 장. 안드-사람의 북 유럽 정복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투르케스탄 남쪽 러시아 지역을 통과하여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강되고 증진되었으며, 말을 탄 안드-사람의 마지막 물결이 유럽을 휩쓸게 되었을 때에는, 안드-사람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숫자보다 이미 더 많이 있었다.

3,000년 동안, 북부에 있는 안드-사람들의 군사적 본부는 덴마크에 있었다. 이 중심지로부터 계속적인 정복의 물결이 퍼져 나갔으며, 세기(世紀)들이 지나감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정복자들과 피정복 민족들이 최종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안드-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백색 인종이 점점 많아졌다.

북쪽 지역에서 청색 인종이 이미 흡수되었고 결국에는 말을 탄 백색 인종 침입자들에게 굴복당한 반면, 백색 인종과 혼합된 진보된 부족들은 크로마뇽인들로부터 완강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우월한 지성과 언제까지나-증강하는 생물학적 요소들에 힘입어서, 그 전에 있었던 종족을 전멸시켰다.

백색 인종과 청색 인종 사이의 결정적인 투쟁은 솜즈강 계곡에서 벌어졌다. 이곳에서, 전성기에 도달한 청색 인종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안드-사람들과 심한 투쟁을 벌였고, 이 크로마뇽들은 백색 인종 침입자들의 우월한 전술 앞에 굴복당하기까지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 영토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솜즈 강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북쪽 무리의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거둔 토르는, 북부 백색 부족들의 영웅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들 중의 일부에 의해서 하나의 하느님으로 존경되었다.

가장 오래 까지 유지된 청색 인종의 본거지는 남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지막의 극심한 군사적 저항은 솜즈 강 주변에서 굴복 당하였다. 후대의 정복은, 상업적인 침투와 강(江)들 유역의 과도한 인구 증가에 의해서 그리고 우월한 인종과의 지속적인 상호 결혼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열등한 인종을 냉혹하게 멸절시키는 것과 결부되었다.

안드-사람 원로들로 구성된 부족 협의회가 열

forefathers of the Scandinavian, German, and Anglo-Saxon peoples.

80:4.6 (893.2) It was not long before the superior blue strains had been fully absorbed by the Andites throughout all northern Europe. Only in Lapland (and to a certain extent in Brittany) did the older Andonites retain even a semblance of identity.

5. THE ANDITE CONQUEST OF NORTHERN EUROPE

80:5.1 (893.3) The tribes of northern Europe were being continuously reinforced and upstepped by the steady stream of migrants from Mesopotamia through the Turkestan-south Russian regions, and when the last waves of Andite cavalry swept over Europe, there were already more men with Andite inheritance in that region than were to be found in all the rest of the world.

80:5.2 (893.4) For three thousand years the military headquarters of the northern Andites was in Denmark. From this central point there went forth the successive waves of conquest, which grew decreasingly Andite and increasingly white as the passing centuries witnessed the final blending of the Mesopotamian conquerors with the conquered peoples.

80:5.3 (893.5) While the blue man had been absorbed in the north and eventually succumbed to the white cavalry raiders who penetrated the south, the advancing tribes of the mixed white race met with stubborn and protracted resistance from the Cro-Magnons, but superior intelligence and ever-augmenting biologic reserves enabled them to wipe the older race out of existence.

80:5.4 (893.6) The decisive struggles between the white man and the blue man were fought out in the valley of the Somme. Here, the flower of the blue race bitterly contested the southward-moving Andites, and for over five hundred years these Cro-Magnoids successfully defended their territories before succumbing to the superior military strategy of the white invaders. Thor, the victorious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orth in the final battle of the Somme, became the hero of the northern white tribes and later on was revered as a god by some of them.

80:5.5 (893.7) The strongholds of the blue man which persisted longest were in southern France, but the last great military resistance was overcome along the Somme. The later conquest progressed by commercial penetration, population pressure along the rivers, and by continued intermarriage with the superiors, coupled with the ruthless extermination of the inferiors.

80:5.6 (893.8) When the tribal council of the Andite

등한 포로에 대하여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포로는 복잡한 의식을 거쳐서 샤만 사제들에게 넘겨졌고, 그 사제는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가서 “행복한 사냥터”로 들어가는 예식—익사시킴—이 관례-운영되었다. 유럽의 백색 인종 침입자들은, 자기 혈통으로 빨리 흡수되지 않고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멸절시켰으며, 그렇게 해서—그리고 빠른 속도로—청색 인종은 멸종되었다.

크로마뇽 청색 인종은 현대의 유럽 종족들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의 구성 요소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를 후대에 정복한 강건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흡수됨으로써만 살아남게 되었다. 청색 인종 혈통은 유럽의 백색 인종에게 많은 육체적 생기와 불굴의 특색들을 제공하였지만, 피가 섞인 유럽 민족들의 유머와 상상력은 안드-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북부 지역의 백색 인종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안드-사람과 청색 인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안드-사람 문명의 즉각적인 상실, 과도기적 본성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에는, 이들 북부 야만인들의 잠재적인 우월성이 현시되었고, 지금-현재의 유럽 문명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기원전 5,000년경에, 진화하는 백색 인종들이, 독일과 북부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섬들을 포함하는 북부 유럽 전체를 지배하였다. 중부 유럽은 동근 머리의 안돈-사람들과 청색 인종에 의해서 한동안 통제되었다. 그 안돈-사람들은 주로 다뉴브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 6 장. 나일 근처의 앤다이트

마지막 안드-사람 이주가 발생된 시기부터, 유프라테스 계곡에서는 문화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문명의 직접적인 중심지는 나일 계곡으로 바뀌었다. 이집트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진보된 집단의 본부(本部)로서, 메소포타미아의 후계자가 되었다.

나일 계곡은 메소포타미아 계곡보다 약간 먼저 홍수를 겪기 시작하였지만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초기의 퇴보는 계속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보충되었고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집트의 문화는 비록 실제적으로는 유프라테스 지역으로부터 유래되기는 하였지만 서서히 선두의 자리로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가 홍수를 겪는 동안, 이집트에는 일곱 가지의 독특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를 제외한 전체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왔다.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의 마지막 탈출이 발생되었을 때, 이집트는 가장 숙련된 예술가들과 거장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 안드-사람 거장들은, 강에서의 생활과 홍수 그리고 관개와 건조한 계절 등에 속속들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고향에 있는 듯이 매우 안정감을 가졌다. 그들은 나일 계곡의 보호된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누렸

elders had adjudged an inferior captive to be unfit, he was, by elaborate ceremony, committed to the shaman priests, who escorted him to the river and administered the rites of initiation to the “happy hunting grounds” — lethal submergence. In this way the white invaders of Europe exterminated all peoples encountered who were not quickly absorbed into their own ranks, and thus did the blue man come to an end — and quickly.

80:5.7 (893.9) The Cro-Magnoid blue man constituted the biologic foundation for the modern European races, but they have survived only as absorbed by the later and virile conquerors of their homelands. The blue strain contributed many sturdy traits and much physical vigor to the white races of Europe, but the humor and imagination of the blended European peoples were derived from the Andites. This Andite-blue union, resulting in the northern white races, produced an immediate lapse of Andite civilization, a retardation of a transient nature. Eventually, the latent superiority of these northern barbarians manifested itself and culminated in present-day European civilization.

80:5.8 (894.1) By 5000 B.C. the evolving white races were dominant throughout all of northern Europe, including northern Germany, northern France, and the British Isles. Central Europe was for some time controlled by the blue man and the round-headed Andonites. The latter were mainly situated in the Danube valley and were never entirely displaced by the Andites.

6. THE ANDITES ALONG THE NILE

80:6.1 (894.2) From the times of the terminal Andite migrations, culture declined in the Euphrates valley, and the immediate center of civilization shifted to the valley of the Nile. Egypt became the successor of Mesopotamia as the headquarters of the most advanced group on earth.

80:6.2 (894.3) The Nile valley began to suffer from floods shortly before the Mesopotamian valleys but fared much better. This early setback was more than compensated by the continuing stream of Andite immigrants, so that the culture of Egypt, though really derived from the Euphrates region, seemed to forge ahead. But in 5000 B.C., during the flood period in Mesopotamia, there were seven distinct groups of human beings in Egypt; all of them, save one, came from Mesopotamia.

80:6.3 (894.4) When the last exodus from the Euphrates valley occurred, Egypt was fortunate in gaining so many of the most skillful artists and artisans. These Andite artisans found themselves quite at home in that they were thoroughly familiar with river life, its floods, irrigations, and dry seasons. They enjoyed the sheltered position of

는데; 유프라테스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는 적으로 부터의 습격과 공격을 훨씬 적게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금속 가공 기술을 크게 향상 시켰다. 그들은 이곳에서 철광석을 가공하였는데, 그 철광석은 흑해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나이 산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집트인들은 지방마다 다른 신(神)들을 매우 일찍부터 통합하여 하나의 정교한 국가적 하느님들의 체계를 세웠다. 그들은 광범위한 신학 체계를 개발하였고, 똑같이 광범위하면서도 부담을 주는 사제(司祭)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몇 명의 다른 영도자들은, 셋-사람의 초기 종교적 가르침들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되살려 보려고 애쓰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안드-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최초의 석조 건축물을 지었다. 돌로 지은 피라미드들 중에서 처음으로 건축되고 가장 절묘한 것은, 안드-사람 고안 건축술의 천재였던 임호텝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그가 수상으로 일할 때였다. 그 전에 세워진 건물들은 벽돌을 이용하였고,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는 돌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건축 기술은 이 위대한 건축자의 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되었다.

이러한 찬란한 문화 신(新)시대는 나일 주변의 내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그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 침략을 당하였는데, 황폐한 아라비아로부터의 열등한 부족들과 남쪽으로부터의 흑색 인종에 의해서였다. 그 결과로, 사회적 진보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퇴보를 거듭하였다.

제 7 장. 지중해 섬들의 안드-사람

동부 메소포타미아의 땅에서 문화가 퇴보하는 동안,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들의 우월한 문명은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기원전 약 12,000년경에, 총명한 안드-사람들의 부족이 크레테로 이주하였다. 이 섬은 그러한 우월한 집단이 그토록 초기에 정착한 유일한 섬이었으며,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이 항해자들의 후손이 인접된 섬들로 퍼져 나갔다. 이 집단은 머리가 좁고 키가 비교적 작은 안드-사람들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낫-사람들의 반-사람 분파와 섞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키는 모두 6피트 미만이었으며, 그들보다 키가 크며 열등한 동족들에 의해서 본토로부터 실제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크레테로 이주한 이 사람들은, 옷감을 짜는 일, 금속 가공, 도예술, 남공업, 그리고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였고 목축업과 농사짓는 일을 하였다.

그들이 크레테에 정착한 후로 거의 2,000년이 흐른 뒤에, 키가 큰 아담아들 후손들의 집단 하나가 북부 지역의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왔는데

the Nile valley; they were there much less subject to hostile raids and attacks than along the Euphrates. And they added greatly to the metalworking skill of the Egyptians. Here they worked iron ores coming from Mount Sinai instead of from the Black Sea regions.

80:6.4 (894.5) The Egyptians very early assembled their municipal deities into an elaborate national system of gods. They developed an extensive theology and had an equally extensive but burdensome priesthood. Several different leaders sought to revive the remnants of the early religious teachings of the Sethites, but these endeavors were short-lived. The Andites built the first stone structures in Egypt. The first and most exquisite of the stone pyramids was erected by Imhotep, an Andite architectural genius, while serving as prime minister. Previous buildings had been constructed of brick, and while many stone structures had been erec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is was the first in Egypt. But the art of building steadily declined from the days of this great architect.

80:6.5 (894.6) This brilliant epoch of culture was cut short by internal warfare along the Nile, and the country was soon overrun, as Mesopotamia had been, by the inferior tribes from inhospitable Arabia and by the blacks from the south. As a result, social progress steadily declined for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7. ANDITES OF THE MEDITERRANEAN ISLES

80:7.1 (895.1) During the decline of culture in Mesopotamia there persisted for some time a superior civilization on the island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80:7.2 (895.2) About 12,000 B.C. a brilliant tribe of Andites migrated to Crete. This was the only island settled so early by such a superior group, and it was almost two thousand years before the descendants of these mariners spread to the neighboring isles. This group were the narrow-headed, smaller-statured Andites who had intermarried with the Vanite division of the northern Nodites. They were all under six feet in height and had been literally driven off the mainland by their larger and inferior fellows. These emigrants to Crete were highly skilled in textiles, metals, pottery, plumbing, and the use of stone for building material. They engaged in writing and carried on as herders and agriculturists.

80:7.3 (895.3) Almost two thousand years after the settlement of Crete a group of the tall descendants of Adamson made their way over the northern

데,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고향으로부터 거의 똑바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리스인들의 선조인 이 사람들은 아담아들과 라타의 직계 후손인 사토에 의해서 서쪽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정착한 이 집단은, 아담아들-사람들의 두 번째 문명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선택되고 우월한 민족이었던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아담아들의 후대 아들들은 창발 하는 백색 인종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혈통들이었다. 그들은 고도의 지성을 가진 계층이었고, 육체적으로도 호감을 샀는데, 첫 번째 에덴의 시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리스와 에게 해의 섬들 지역은 이윽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뒤를 이어서 서방 세계의 무역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아담아들-사람 선구자들의 문화를 제외하고는, 에게 해 지방의 모든 예술과 과학 역시 실천적으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이 선구자들의 모든 예술과 재능들은 아담아들,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아들과,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순수한 늦-사람 참모로부터 이어진 혈통의 후손인 한 딸, 아담아들의 비범한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나온 자손의 직접적인 유산이었다.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하느님들과 초인간적 존재들로부터 탄생된 직접적인 후손으로 여기는 신화적 전승들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에게 해 지역은 다섯 차례에 걸친 뚜렷한 문화적 단계를 지나왔는데, 단계가 지날 때마다 영적인 수준이 저하되었고, 그리스의 후기 세대들이 사들인 다뉴브 지역에서의 노예들의 급속도로 증가하는 평범한 후손들의 압력에 눌려서, 최후의 영화롭던 시대는 머지않아 소멸되었다.

카인의 후예들의 어머니 예배종파가 최고로 유행되었던 것은 바로 이 시기의 크레테에서였다. 이 예배종파는 영화롭게 된 이브를 “대모(大母)”로 경배하였다. 이브의 형상이 도처에 있었다. 수천 개의 대종을 위한 성소들이 크레테와 소아시아 전역에 세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 예배종파는 그리스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변장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종교와 합쳐졌다.

기원전 약 6,500년 전까지, 안드-사람들의 영적 유산에서 큰 쇠퇴가 발생하였다. 아담의 후손들은 광범위하게 흩어졌고, 보다 오래되고 숫자가 많은 인간 종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삼켜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안드-사람 문명의 이러한 쇠퇴는, 그들의 종교적인 표준들의 소멸과 함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종족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내버려두었다.

islands to Greece, coming almost directly from their highland home north of Mesopotamia. These progenitors of the Greeks were led westward by Sato, a direct descendant of Adamson and Ratta.

80:7.4 (895.4) The group which finally settled in Greece consisted of three hundred and seventy-five of the selected and superior people comprising the end of the second civilization of the Adamsonites. These later sons of Adamson carried the then most valuable strains of the emerging white races. They were of a high intellectual order and, physically regarded, the most beautiful of men since the days of the first Eden.

80:7.5 (895.5) Presently Greece and the Aegean Islands region succeeded Mesopotamia and Egypt as the Occidental center of trade, art, and culture. But as it was in Egypt, so again practically all of the art and science of the Aegean world was derived from Mesopotamia except for the culture of the Adamsonite forerunners of the Greeks. All the art and genius of these latter people is a direct legacy of the posterity of Adamson, the first son of Adam and Eve, and his extraordinary second wife, a daughter descended in an unbroken line from the pure Nodite staff of Prince Caligastia. No wonder the Greeks had mythological traditions that they were directly descended from gods and superhuman beings.

80:7.6 (895.6) The Aegean region passed through five distinct cultural stages, each less spiritual than the preceding, and ere long the last glorious era of art perished beneath the weight of the rapidly multiplying mediocre descendants of the Danubian slaves who had been imported by the later generations of Greeks.

80:7.7 (895.7) It was during this age in Crete that the *mother cult* of the descendants of Cain attained its greatest vogue. This cult glorified Eve in the worship of the “great mother.” Images of Eve were everywhere. Thousands of public shrines were erected throughout Crete and Asia Minor. And this mother cult persisted on down to the times of Christ, becoming later incorporated in the early Christian religion under the guise of the glorification and worship of Mary the earth mother of Jesus.

80:7.8 (895.8) By about 6500 B.C. there had occurred a great decline in the spiritual heritage of the Andites. The descendants of Adam were widely dispersed and had been virtually swallowed up in the older and more numerous human races. And this decadence of Andite civilization, together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ir religious standards, left the spiritually impoverished races of the world in a deplorable condition.

기원전 5,000년경에는, 3개의 가장 순수한 아담 후손 혈통들이 수메르와 북부 유럽 그리고 그리스에 남아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는, 아라비아로부터 스며들어오는 혼합되고 짙은 색의 종족들의 물결에 의해서 서서히 저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한 민족들의 도래는, 안드-사람들의 생물학적 문화적 잔재들이 더욱 널리 흩어지도록 기여하였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로부터, 더욱 모험심이 많은 민족들이 서쪽으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 섬들로 들어갔다. 이 이주민들은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였고 길들인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원전 약 5,000년경에, 진보적인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강력한 무리가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하여 키프로스 섬에 정착하였는데, 이 문명은 약 2,000년 정도 지난 후에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야만적인 유목민들에 의해서 전멸되었다.

또 다른 거대한 거류민단이, 후대의 칼타고 지역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많은 숫자의 안드-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일찍이 에게해 섬들로부터 이탈리아로 들어왔던 그들의 동족들과 스위스에서 섞이게 되었다.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 퇴보를 답습할 때, 매우 유능하고 진보를 이룩한 여러 가족들이 크레테로 피신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진보를 이룩한 이 문명을 크게 증강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열등한 집단들이 들어와서 크레테의 문명이 위협을 당하자, 문화가 좀 더 발전된 가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로 들어갔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선생들과 예술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역인들과 거류민단이었다. 결국에는 그들의 예술과 상업을 삼켜버린 열등한 물결에 압도당하게 되기 전에는, 그들은 성공적으로 많은 문화적 전초기지를 서쪽 방향에 세웠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 문명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가 남부 유럽의 후대 민족들 속에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아담아들-사람들의 혼합된 후손들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본토의 부족들 속에 합병되었다.

제 8 장. 다뉴브의 안돈-사람

유프라테스 계곡의 안드-사람 민족들 중에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청색 인종과 섞였으며,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하라인들과 남부의 청색 인종들과 섞였다. 그리고 백색 인종의 이 두 부류는,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에도, 이 중심 지역들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초기의 안돈-사람 부족들 중에서 산악 지역에 살아남은 넓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80:7.9 (896.1) By 5000 B.C. the three purest strains of Adam's descendants were in Sumeria, northern Europe, and Greece. The whole of Mesopotamia was being slowly deteriorated by the stream of mixed and darker races which filtered in from Arabia. And the coming of these inferior peoples contributed further to the scattering abroad of the biologic and cultural residue of the Andites. From all over the fertile crescent the more adventurous peoples poured westward to the islands. These migrants cultivated both grain and vegetables, and they brought domesticated animals with them.

80:7.10 (896.2) About 5000 B.C. a mighty host of progressive Mesopotamians moved out of the Euphrates valley and settled upon the island of Cyprus; this civilization was wiped out about two thousand years subsequently by the barbarian hordes from the north.

80:7.11 (896.3) Another great colony settled on the Mediterranean near the later site of Carthage. And from north Africa large numbers of Andites entered Spain and later mingled in Switzerland with their brethren who had earlier come to Italy from the Aegean Islands.

80:7.12 (896.4) When Egypt followed Mesopotamia in cultural decline, many of the more able and advanced families fled to Crete, thus greatly augmenting this already advanced civilization. And when the arrival of inferior groups from Egypt later threatened the civilization of Crete, the more cultured families moved on west to Greece.

80:7.13 (896.5) The Greeks were not only great teachers and artists, they were also the world's greatest traders and colonizers. Before succumbing to the flood of inferiority which eventually engulfed their art and commerce, they succeeded in planting so many outposts of culture to the west that a great many of the advances in early Greek civilization persisted in the later peoples of southern Europe, and many of the mixed descendants of these Adamsonites became incorporated in the tribes of the adjacent mainlands.

8. THE DANUBIAN ANDONITES

80:8.1 (896.6) The Andite peoples of the Euphrates valley migrated north to Europe to mingle with the blue men and west into the Mediterranean regions to mix with the remnants of the commingled Saharans and the southern blue men. And these two branches of the white race were, and now are, widely separated by the broad-headed mountain survivors of the earlier Andonite tribes which had long inhabited these central regions.

이러한 안돈의 후손들은 중앙과 남부 유럽의 산악지대 대부분으로 분산되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부터 도착된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보충되었는데, 그들은 상당한 힘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고대의 히타이트-사람은 안돈-사람의 혈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되었는데; 그들의 창백한 피부와 넓은 머리는 그 종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 혈통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낳았고, 그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후손들의 얼굴 모양의 대부분의 특징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후손들은 안드-사람들로부터 유래된 문화와 종교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안돈-사람과 분명하게 일치하였다.

이태리와 스위스 그리고 남부 유럽의 호수 위의 퇴적지 또는 통나무 방파제 위에 세운 집에서 거주하는 그 부족들은, 아프리카인과 에게 해 사람들 그리고 더욱 특별하게는 다뉴브의 이주자들의 확대하는 경계선에 해당하였다.

다뉴브 사람들은 안돈-사람들이었고, 발칸 반도를 통하여 유럽에 들어왔던 농부들과 목동들이었으며, 다뉴브 계곡을 따라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그릇을 만들었고 땅을 경작하였으며 계곡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뉴브 사람들의 가장 북쪽의 거주지는 벨기에 안에 있는 리지에 있었다. 이 부족들은, 그들의 문화적 중심지와 근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하면서 급속도로 저하되었다. 가장 훌륭한 도기류는 초기 정착자들의 그 제품들이다.

다뉴브 사람들은 크레테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한 결과로 어머니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부족들은 작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해안으로부터 온 안돈-사람 항해자들과 나중에 혼합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어머니를 경배하는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중앙 유럽의 대부분에는 넓은 머리를 가진 백색 인종들의 혼합된 유형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어머니를 경배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시키는 종교적 실천 관행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돌로 만든 오두막에서 죽은 사람을 태우는 것은 그것이 어머니 예배종파자들의 관습이었었기 때문이다.

제 9 장. 세 종류 백색 인종

안드-사람의 이주가 끝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인종적 혼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백색 인종들로 일반화되었다:

1. 북부의 백색 인종. 소위 노르딕 인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청색 인종과 안드-사람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안돈-사람의 혈통이 섞여 있었고, 적색과 황색의 산지 종족의 혈통도 약간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북부의 백색 인종은 이 네 가지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 혈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유전자는 청색 인종으로부터 왔다. 전형적인 초기의 노르딕은 머리가 길고 키가 컸으며 금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종족은 오래 전에

80:8.2 (896.1) These descendants of Andon were dispersed through most of the mountainous regions of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They were often reinforced by arrivals from Asia Minor, which region they occupied in considerable strength. The ancient Hittites stemmed directly from the Andonite stock; their pale skins and broad heads were typical of that race. This strain was carried in Abraham's ancestry and contributed much to the characteristic facial appearance of his later Jewish descendants who, while having a culture and religion derived from the Andites, spoke a very different language. Their tongue was distinctly Andonite.

80:8.3 (897.1) The tribes that dwelt in houses erected on piles or log piers over the lakes of Italy, Switzerland, and southern Europe were the expanding fringes of the African, Aegean, and, more especially, the Danubian migrations.

80:8.4 (897.2) The Danubians were Andonites, farmers and herders who had entered Europe through the Balkan peninsula and were moving slowly northward by way of the Danube valley. They made pottery and tilled the land, preferring to live in the valleys. The most northerly settlement of the Danubians was at Liege in Belgium. These tribes deteriorated rapidly as they moved away from the center and source of their culture. The best pottery is the product of the earlier settlements.

80:8.5 (897.3) The Danubians became mother worshipers as the result of the work of the missionaries from Crete. These tribes later amalgamated with groups of Andonite sailors who came by boats from the coast of Asia Minor, and who were also mother worshipers. Much of central Europe was thus early settled by these mixed types of the broad-headed white races which practiced mother worship and the religious rite of cremating the dead, for it was the custom of the mother cultists to burn their dead in stone huts.

9. THE THREE WHITE RACES

80:9.1 (897.4) The racial blends in Europe toward the close of the Andite migrations became generalized into the three white races as follows:

80:9.2 (897.5) 1. *The northern white race.* This so-called Nordic race consisted primarily of the blue man plus the Andite but also contained a considerable amount of Andonite blood, together with smaller amounts of the red and yellow Sangik. The northern white race thus encompassed these four most desirable human stocks. But the largest inheritance was from the blue man. The typical early Nordic was long-headed, tall, and blond. But long ago this race

백색 민족들의 모든 지류(支流)들과 속속들이 혼합되었다.

침입하는 노르딕 사람들과 충돌한 유럽의 원시적인 문화는, 청색 인종과 피가 섞인 퇴화하는 다뉴브인 들이 이룩한 것이었다. 노르딕-덴마크 문화와 다뉴브-안돈-사람 문화는 라인 강에서 서로 만나 혼합되었는데, 오늘날 독일에 두 종족이 실존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노르딕 사람들은 발틱 해안에서 계속적으로 호박을 매매하였는데, 브렌너 통로를 통하여 다뉴브 계곡에 사는 머리가 넓은 사람들과 큰 교역을 이룩하였다. 다뉴브 사람들과의 이러한 광범위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북부 지역의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경배하게 되었고,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유럽 전역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백색 인종들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납골 단지 속에서 오직 그 재만이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이 백색 인종들은 집을 건축하였고; 결코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백색 인종의 초기 문화에 대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에 반하여 그 전에 있었던 크로마뇽인 유형은 동굴과 석굴 속에 안전하게 밀봉되어서 잘 간직되어 왔다.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한때 유럽의 북부 지역에는 퇴보하는 다뉴브 사람들과 청색 인종의 원시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그리고 매우 우월한 백색 인종의 문화가 있었다.

2. 중앙의 백색 인종. 이 집단은, 청색과 황색 그리고 안드-사람의 혈통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주로 안돈-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넓었고 가무잡잡하였으며 땅딸막하였다. 그들은 노르딕 종족과 지중해의 종족 사이를 켜기 모양으로 갈라놓았는데, 그 꼭대기는 프랑스 동부를 관통하였고 넓은 그 하부(下部)는 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의 20,000년 동안, 안돈-사람들은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멀리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밀려났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점점 더 건조해지는 기후 때문에 이 안돈-사람이 투르케스탄으로 되돌아왔다. 이 안돈-사람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남쪽으로 밀려왔는데, 카스피 해와 흑해 부근에서 나뉘어져서, 발칸과 우크라이나의 두 길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 침입에는 아담아들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집단들이 포함되었으며, 그 침입 기간의 하반기 동안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란 안드-사람들은 물론 셋 족속 사제들의 후손들도 많이 동행하였다.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안돈-사람들 중에서 서쪽 방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유럽에 이르렀다. 그리고 투르케스탄 언덕에 있었던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다뉴브 분지에 범람하게 됨으로써, 그 때까지의 문화적 퇴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퇴보가 일

became thoroughly mixed with all of the branches of the white peoples.

80:9.3 (897.6) The primitive culture of Europe, which was encountered by the invading Nordics, was that of the retrograding Danubians blended with the blue man. The Nordic-Danish and the Danubian-Andonite cultures met and mingled on the Rhine as is witnessed by the existence of two racial groups in Germany today.

80:9.4 (897.7) The Nordics continued the trade in amber from the Baltic coast, building up a great commerce with the broadheads of the Danube valley via the Brenner Pass. This extended contact with the Danubians led these northerners into mother worship, and for several thousands of years cremation of the dead was almost universal throughout Scandinavia. This explains why remains of the earlier white races, although buried all over Europe, are not to be found — only their ashes in stone and clay urns. These white men also built dwellings; they never lived in caves. And again this explains why there are so few evidences of the white man's early culture, although the preceding Cro-Magnon type is well preserved where it has been securely sealed up in caves and grottoes. As it were, one day in northern Europe there is a primitive culture of the retrogressing Danubians and the blue man and the next that of a suddenly appearing and vastly superior white man.

80:9.5 (897.8) 2. *The central white race.* While this group includes strains of blue, yellow, and Andite, it is predominantly Andonite. These people are broad-headed, swarthy, and stocky. They are driven like a wedge between the Nordic and Mediterranean races, with the broad base resting in Asia and the apex penetrating eastern France.

80:9.6 (898.1) For almost twenty thousand years the Andonites had been pushed farther and farther to the north of central Asia by the Andites. By 3000 B.C. increasing aridity was driving these Andonites back into Turkestan. This Andonite push southward continued for over a thousand years and, splitting around the Caspian and Black seas, penetrated Europe by way of both the Balkans and the Ukraine. This invasion included the remaining groups of Adamson's descendants an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invasion period, carried with it considerable numbers of the Iranian Andites as well as many of the descendants of the Sethite priests.

80:9.7 (898.2) By 2500 B.C. the westward thrust of the Andonites reached Europe. And this overrunning of all Mesopotamia, Asia Minor, and the Danube basin by the barbarians of the hills of Turkestan constituted the most serious and lasting of all cultural setbacks up to that time. These

어나게 되었다. 이 침입자들은 중앙 유럽에 있는 종족들의 성격을 분명히 안돈-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알프스 산맥 근처의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계속 남아 있다.

3. 남부의 백색 인종. 갈색의 이 지중해 인종은 안드-사람과 청색 인종의 혼혈로 이루어졌는데, 북쪽의 경우보다는 안돈-사람의 혈통이 적게 들어 있었다. 또한 이 집단은 사하라인 들을 통하여 상당한 양의 2차 산기 혈통을 흡수하였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백색 인종의 이 남부 집단에게는, 동부 지중해 사람들로부터 전달된 강력한 안드-사람 요소들이 주입되었다.

아무튼, 지중해의 근해 지역들은 기원전 2,500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목민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안드-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유목민들이 동부 지중해 구역들을 침입하였을 때, 육상 통행과 거래는 이 때 수세기 동안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육상 교통의 방해로 말미암아 해상 통행과 거래가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지중해에서 배로 운반되는 교역은 약 4,500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상 교통 발전의 결과로, 지중해 분지의 연안 전체 지역에 두루 안드-사람들의 후손들이 갑작스럽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종상의 혼합은, 남부 유럽인으로 하여금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혼합되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종족은 더욱 심한 혼합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황색-안드-사람이 합쳐진 아라비아 민족과 많이 혼합되었다. 이 지중해 연안의 종족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실질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섞여서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인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은 키가 작고 머리가 길며 갈색의 피부를 가졌다.

북쪽 지역에서는 전쟁과 결혼을 통하여 안드-사람들이 청색 인종의 흔적을 없애버렸지만, 남부에서는 그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었다. 바스크 사람들과 베르베르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 종족의 두 지류들을 대표하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사하라인들과 속속들이 섞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원전 약 3,000년경의 중앙 유럽에서 나타났던 인종 혼합에 대한 설명이다. 부분적인 아담의-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종족들 속에서는 피가 섞였다.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며 도래되는 청동기 시대와 교차되는 때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어머니 경배와 연관된다. 남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태양 경배와 연관된다. 이 시기에는 모양이 둥글고 지붕이 없는 신전들을 세웠다. 유럽의 백색 인종들은 정력적인 건축자들이었고, 태양에 대한 상징으로 거대한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스톤헨지를 세운 것도 그러한 성향 때문이었다. 태양 경배가 유행한 것은, 이때에

invaders definitely Andonized the character of the central European races, which have ever since remained characteristically Alpine.

80:9.8 (898.3) 3. *The southern white race.* This brunet Mediterranean race consisted of a blend of the Andite and the blue man, with a smaller Andonite strain than in the north. This group also absorbed a considerable amount of secondary Sangik blood through the Saharans. In later times this southern division of the white race was infused by strong Andite elements from the eastern Mediterranean.

80:9.9 (898.4) The Mediterranean coastlands did not, however, become permeated by the Andites until the times of the great nomadic invasions of 2500 B.C. Land traffic and trade were nearly suspended during these centuries when the nomads invaded the eastern Mediterranean districts. This interference with land travel brought about the great expansion of sea traffic and trade; Mediterranean sea-borne commerce was in full swing about forty-five hundred years ago. And this development of marine traffic resulted in the sudden expansion of the descendants of the Andites throughout the entire coastal territory of the Mediterranean basin.

80:9.10 (898.5) These racial mixtures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southern European race, the most highly mixed of all. And since these days this race has undergone still further admixture, notably with the blue-yellow-Andite peoples of Arabia. This Mediterranean race is, in fact, so freely admixed with the surrounding peoples as to be virtually indiscernible as a separate type, but in general its members are short, long-headed, and brunet.

80:9.11 (898.61) In the north the Andites, through warfare and marriage, obliterated the blue men, but in the south they survived in greater numbers. The Basques and the Berbers represent the survival of two branches of this race, but even these peoples have been thoroughly admixed with the Saharans.

80:9.12 (898.7) This was the picture of race mixture presented in central Europe about 3000 B.C. In spite of the partial Adamic default, the higher types did blend.

80:9.13 (898.8) These were the times of the New Stone Age overlapping the oncoming Bronze Age. In Scandinavia it was the Bronze Age associated with mother worship. In southern France and Spain it was the New Stone Age associated with sun worship. This was the time of the building of the circular and roofless sun temples. The European white races were energetic builders, delighting to set up great stones as tokens to the sun, much as did their later-day descendants at

남부 유럽에서 농업이 크게 번창하던 때였음을 보여준다.

비교적 최근에 태양을 경배하던 시기의 미신적인 관습들은 브리타니 반도의 풍속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비록 1,500년 전에 그리스도교화 되었지만, 이 브리타니 사람들은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마법의 장식물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번갯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뇌석(雷石)을 아직도 굴뚝 속에 넣어두고 있다. 브리타니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 사람들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서부 유럽에 있었던 순수한 안돈-사람 주민들의 생존자들인데, 지중해 연안의 혈통들과 혼합되었다.

그러나 백색 인종들을 노르딕과 알프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주민으로 분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백색 인종을 그러한 계통으로 상당히 잘 분류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광범위한 혼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쾌하게 그 차이들을 정체성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기원전 3,000년경에도, 고대의 사회적 집단들이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유럽의 이 문화는 5,000년 동안 계속 자라면서 어느 정도 서로 섞였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서방 국가들끼리의 충만한 상호 왕래는 방해를 받았다. 지나간 세기 동안 이 문화는 북아메리카의 국제적으로 구성된 주민들 속에서 섞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체험해 오고 있다; 그 대륙의 미래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종적인 유전인자들의 본질특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유지되는 사회적 문화의 차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Stonehenge. The vogue of sun worship indicates that this was a great period of agriculture in southern Europe.

80:9.14 (899.1) The superstitions of this comparatively recent sun-worshipping era even now persist in the folkways of Brittany. Although Christianized for over fifteen hundred years, these Bretons still retain charms of the New Stone Age for warding off the evil eye. They still keep thunderstones in the chimney as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The Bretons never mingled with the Scandinavian Nordics. They are survivors of the original Andonite inhabitants of western Europe, mixed with the Mediterranean stock.

80:9.15 (899.2) But it is a fallacy to presume to classify the white peoples as Nordic, Alpine, and Mediterranean. There has been altogether too much blending to permit such a grouping. At one time there was a fairly well-defined division of the white race into such classes, but widespread intermingling has since occurred, an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identify these distinctions with any clarity. Even in 3000 B.C. the ancient social groups were no more of one race than are the present inhabitants of North America.

80:9.16 (899.3) This European culture for five thousand years continued to grow and to some extent intermingle. But the barrier of language prevented the full reciprocation of the various Occidental nations. During the past century this culture has been experiencing its best opportunity for blending in the cosmopolitan population of North America; and the future of that continent will be determined by the quality of the racial factors which are permitted to enter into its present and future populations, as well as by the level of the social culture which is maintained.

80:9.17 (899.4) [Present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81 편 현대 문명의 발전

⇨ 080

유랜시아 책

082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1 편 현대 문명의 발전

섹션

소개

- 제 1 장. 문명의 요람
- 제 2 장. 문명의 도구
- 제 3 장. 도시와 제조업과 상업
- 제 4 장. 혼합된 종족들
- 제 5 장. 문화적 사회
- 제 6 장. 문명의 유지

PAPER 81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Cradle of Civilization
- 2. The Tools of Civilization
- 3. Cities, Manufacture, and Commerce
- 4. The Mixed Races
- 5. Cultural Society
- 6. The Maintenance of Civilization

소개

칼리가스티아와 아담의 임무 속에 부여되었던 세계 개량에 대한 계획의 실패가 여러 번 오르내린 것에 상관없이, 인간 종족들의 기본적인 유기체 진화가 계속되어서 그 종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진보와 인종적인 발전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게 하였다. 진화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중지될 수는 없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보라색 인종의 영향은, 문명의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아담 시대 이후로, 거의 백만 년에 해당하는 그 이전의 전체 실존들에 두루 인류의 진보를 훨씬 능가해 왔다.

INTRODUCTION

81:0.1 (900.1) REGARDLESS of the ups and downs of the miscarriage of the plans for world betterment projected in the missions of Caligastia and Adam, the basic organic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continued to carry the races forward in the scale of human progress and racial development. Evolution can be delayed but it cannot be stopped.

81:0.2 (900.2) The influence of the violet race, though in numbers smaller than had been planned, produced an advance in civilization which, since the days of Adam, has far exceeded the progress of mankind throughout its entire previous existence of almost a million years.

제 1 장. 문명의 요람

아담 시대 이후 거의 35,000년 동안, 문명의 발상지는 아시아의 남서부에 있었는데, 나일 계곡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뻗어 나가 약간 북쪽을 향하여 아라비아 북부를 지나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투르케스탄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문명이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기

1. THE CRADLE OF CIVILIZATION

81:1.1 (900.3) For about thirty-five thousand years after the days of Adam, the cradle of civilization was in southwestern Asia, extending from the Nile valley eastward and slightly to the north across northern Arabia, through Mesopotamia, and on into Turkestan. And *climate* was the decisive factor in

후가 중대한 요소였다.

아담-사람들의 초기 이주를 막은 것은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에서의 기후와 지형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이었는데, 확대되는 지중해로 인하여 그들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것이 막히면서 그리고 이주하는 물결의 방향을 북동쪽으로 전환하면서 투르크스탄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육지의 융기와 그에 연관된 기후 변화가 완료된, 기원전 15,000년경에는, 문명이 이미 전 세계적인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삼림에 의해서 동쪽으로는 아시아에서 산들로 인해 여전히 갇힌 채로 있는 안드-사람들의 문화적 효소와 생물학적 보존물만이 예외였다.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모든 수고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유라시아 사람들은 사냥을 포기하고, 보다 발전된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짓는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변화는 느리게 일어날 수 있지만, 무시무시한 영향력이다.

초기에 농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개 노예들을 부렸기 때문에, 전에는 농부들이 사냥꾼과 목동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었다. 땅을 일구는 일은 오랫동안 천한 일로 여겨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것을 하나의 저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심지어는 카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양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중되었다.

사람은 대개 사냥꾼으로부터 목축을 하는 시대를 거쳐 농부로 진화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이 안드-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빈번하게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강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부족들이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인 농부로 직접 바뀌게 하곤 하였다. 그러나 사냥하는 일로부터 농업으로 즉각 옮겨가는 현상은, 보라색 인종과 상당히 높은 정도로 혼합된 지역에서만 발생되었다.

진화적인 민족들(특히 중국인들)은, 우연히 수분을 머금은 씨앗으로부터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무덤에 넣어 두었던 씨앗으로부터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남서부의 아시아 전역에서는, 비옥한 강바닥과 인근의 평야 지대를 따라, 안드-사람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개선된 농업 기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두 번째 동산의 경계 지역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원예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였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동산에서 개량된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상부 경계 지역의 고원 지대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다. 아담과 아담아들의 후예들은 이곳에서 만나고 거래하였으며 허물없이 어울렸다.

생활 조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강제적인 변화

the establishment of civilization in that area.

81:1.2 (900.4) It was the great climatic and geologic changes in northern Africa and western Asia that terminated the early migrations of the Adamites, barring them from Europe by the expanded Mediterranean and diverting the stream of migration north and east into Turkestan. By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se land elevations and associated climatic changes, about 15,000 B.C., civilization had settled down to a world-wide stalemate except for the cultural ferments and biologic reserves of the Andites still confined by mountains to the east in Asia and by the expanding forests in Europe to the west.

81:1.3 (900.5) Climatic evolution is now about to accomplish what all other efforts had failed to do, that is, to compel Eurasian man to abandon hunting for the more advanced callings of herding and farming. Evolution may be slow, but it is terribly effective.

81:1.4 (900.6) Since slaves were so generally employed by the earlier agriculturists, the farmer was formerly looked down on by both the hunter and the herder. For ages it was considered menial to till the soil; wherefore the idea that soil toil is a curse, whereas it is the greatest of all blessings. Even in the days of Cain and Abel the sacrifices of the pastoral life were held in greater esteem than the offerings of agriculture.

81:1.5 (900.7) Man ordinarily evolved into a farmer from a hunter by transition through the era of the herder, and this was also true among the Andites, but more often the evolutionary coercion of climatic necessity would cause whole tribes to pass directly from hunters to successful farmers. But this phenomenon of passing immediately from hunting to agriculture only occurred in those regions where there was a high degree of race mixture with the violet stock.

81:1.6 (901.1) The evolutionary peoples (notably the Chinese) early learned to plant seeds and to cultivate crops through observation of the sprouting of seeds accidentally moistened or which had been put in graves as food for the departed. But throughout southwest Asia, along the fertile river bottoms and adjacent plains, the Andites were carrying out the improved agricultural techniques inherited from their ancestors, who had made farming and gardening the chief pursui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econd garden.

81:1.7 (901.2) For thousands of years the descendants of Adam had grown wheat and barley, as improved in the Garden, throughout the highlands of the upper border of Mesopotamia. The descendants of Adam and Adamson here met, traded, and socially mingled.

81:1.8 (901.3) It was these enforced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which caused such a large proportion

로 말미암아, 인간 종족 중 그러한 높은 비율이 잡식 실천 관행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밀과 쌀 그리고 채소를 가축으로부터 나온 고기와 섞어 먹음으로써, 고대의 이 민족들은 건강과 활력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룩하였다.

of the human race to become omnivorous in dietetic practice. And the combination of the wheat, rice, and vegetable diet with the flesh of the herds marked a great forward step in the health and vigor of these ancient peoples.

제 2 장. 문명의 도구

문화는 문명의 수단들의 발전에 입각하여 성장한다. 사람이 야만인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활용하였던 도구들은, 보다 높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힘을 덜 사용하는 정도만큼 효력이 있었다.

사회적인 관련사들에 있어서 진보가 시작되고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사회와 문명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는 너희들은, 초기의 너희 조상들이 사려 깊은 반성과 사회에 관한 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인간 문명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전된 네 가지는:

1. 불을 다룰 수 있게 됨.
2. 동물을 길들임.
3. 포로들을 노예화 함.
4. 사유 재산.

불이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결국에는 과학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원시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평범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

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안돈과 부싯돌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는 곧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에서 훔쳐왔는지를 설명하는 전설로 대체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모든 자연적 현상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해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설명을 추구하였으며, 많은 현대인들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소위 자연적 현상이라 불리는 것들의 탈(脫)개인성화는 오랜 세월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참된 원인들을 찾기 위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점성술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학으로 바꾸었다.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작업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그들의 손에 살아있는 도구들을 쥐어 주었고, 지성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이 없었다면, 사람은 자신의 원시적인 상태에서부터 후대의

2. THE TOOLS OF CIVILIZATION

81:2.1 (901.4) The growth of culture is predicated upon the development of the tools of civilization. And the tools which man utilized in his ascent from savagery were effective just to the extent that they released man power for the accomplishment of higher tasks.

81:2.2 (901.5) You who now live amid latter-day scenes of budding culture and beginning progress in social affairs, who actually have some little spare time in which to *think* about society and civilization,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your early ancestors had little or no leisure which could be devoted to thoughtful reflection and social thinking.

81:2.3 (901.6) The first four great advances in human civilization were:

81:2.4 (901.7) 1. The taming of fire.

81:2.5 (901.8) 2.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81:2.6 (901.9) 3. The enslavement of captives.

81:2.7 (901.10) 4. Private property.

81:2.8 (901.11) While fire, the first great discovery, eventually unlocked the doors of the scientific world, it was of little value in this regard to primitive man. He refused to recognize natural causes as explanations for commonplace phenomena.

81:2.9 (901.12) When asked where fire came from, the simple story of Andon and the flint was soon replaced by the legend of how some Prometheus stole it from heaven. The ancients sought a supernatural explanation for all natural phenomena not within the range of their personal comprehension; and many moderns continue to do this. The depersonalization of so-called natural phenomena has required ages, and it is not yet completed. But the frank, honest, and fearless search for true causes gave birth to modern science: It turned astrology into astronomy, alchemy into chemistry, and magic into medicine.

81:2.10 (901.13) In the premachine age the only way in which man could accomplish work without doing it himself was to use an animal. Domestication of animals placed in his hands living tools, the intelligent use of which prepared the way for both agriculture and transportation. And without these animals man could not have risen from his

문명의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길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들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견되었는데, 특별히 중앙과 남서부 지역이었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역에서 문명이 빨리 발전된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동물들 대부분은 길들이지기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쳤으며, 안드-사람 시대에 다시 길들여졌다. 그러나 개는 아주 오래 전에 청색 인종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후로 계속 사냥꾼들 곁에 남아 있었다.

투르케스탄의 안드-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말을 길들인 첫 번째 민족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기원전 5,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부들은 양, 염소, 젖소, 낙타, 말, 닭, 그리고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운반용 짐승으로 황소, 낙타, 말, 그리고 들소를 이용하였다. 한 때는 사람 자신이 운반용 짐승 역할을 하였다. 청색 인종의 어떤 통치자는 자기 거류민단 안에 짐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한 때 10만 명을 둔 적이 있었다.

노예를 삼고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관습은 농업과 함께 발전되었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생활수준을 높여주었고 사회적인 교양을 위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야만인은 자연의 노예이지만, 과학적인 문명은 인류에게 서서히 점점 더 많은 해방을 수여하고 있다. 동물, 불, 바람, 물, 전기,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자원들을 통하여, 사람은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하는 필요성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방시킬 것이다. 기계류의 풍성한 발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병폐에 상관없이, 그러한 기계 발명으로부터 얻어지는 궁극적인 유익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도 더 나은 방법을 상상해 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문명은 번영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보다 훨씬 뒤진 상태에 있을 것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이용하여 주거지를 삼았는데, 암봉(岩棚) 밑에서 살거나 동굴 속에 거주하였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족을 위한 오두막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집 건물을 새롭게 짓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벽돌 또는 다른 건축 재료들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의 사람들은 나무로 자기들 집을 짓는 비교적 현대적 최초의 종족이었는데, 그 집들은 아메리카를 개척한 정착민들이 만든 초기의 통나무집과 흡사하였다. 평야 지대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거주지는 벽돌로 지어졌으며; 나중에는 불에 구운 벽돌이 이용되었다.

더 옛날에 강가에 살던 종족들은 긴 막대기들을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땅에 박은 다음; 꼭대기

primitive estate to the levels of subsequent civilization.

81:2.11 (902.1) Most of the animals best suited to domestication were found in Asia, especially in the central to southwest regions. This was one reason why civilization progressed faster in that locality tha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Many of these animals had been twice before domesticated, and in the Andite age they were retamed once again. But the dog had remained with the hunters ever since being adopted by the blue man long, long before.

81:2.12 (902.2) The Andites of Turkestan were the first peoples to extensively domesticate the horse, and this is another reason why their culture was for so long predominant. By 5000 B.C. the Mesopotamian, Turkestan, and Chinese farmers had begun the raising of sheep, goats, cows, camels, horses, fowls, and elephants. They employed as beasts of burden the ox, camel, horse, and yak. Man was himself at one time the beast of burden. One ruler of the blue race once had one hundred thousand men in his colony of burden bearers.

81:2.13 (902.3) The institutions of slavery and private ownership of land came with agriculture. Slavery raised the master's standard of living and provided more leisure for social culture.

81:2.14 (902.4) The savage is a slave to nature, but scientific civilization is slowly conferring increasing liberty on mankind. Through animals, fire, wind, water, electricity, and other undiscovered sources of energy, man has liberated, and will continue to liberate, himself from the necessity for unrelenting toil. Regardless of the transient trouble produced by the prolific invention of machinery, the ultimat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such mechanical inventions are inestimable. Civilization can never flourish, much less be established, until man has *leisure* to think, to plan, to imagine new and better ways of doing things.

81:2.15 (902.5) Man first simply appropriated his shelter, lived under ledges or dwelt in caves. Next he adapted such natural materials as wood and stone to the creation of family huts. Lastly he entered the creative stage of home building, learned to manufacture brick and other building materials.

81:2.16 (902.6) The peoples of the Turkestan highlands were the first of the more modern races to build their homes of wood, houses not at all unlike the early log cabins of the American pioneer settlers. Throughout the plains human dwellings were made of brick; later on, of burned bricks.

81:2.17 (902.7) The older river races made their huts by setting tall poles in the ground in a circle; the

는 서로 모아져서, 오두막을 위한 뼈대를 이루었는데, 가로지르는 갈대들로 엮갈리게 짜서 전체적인 모양은 큰 바구니를 엮어놓은 것과 흡사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은 그 뒤에 진흙으로 칠해졌고, 그것이 햇빛으로 마르게 된 후에는, 비가 새지 않는 매우 봉사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각종 바구니를 엮어 짜는 후대의 관념이 독립적으로 기원된 것은, 이러한 초기의 오두막으로부터였다. 어떤 집단에서는, 나무로 만든 뼈대에 축축한 진흙이 칠해지는 광경을 관찰함으로써 도기(陶器)를 만드는 관념이 만들어졌다. 진흙으로 뒤덮인 원시적 오두막들 중의 하나가 우연히 불에 타게 되었을 때, 도기를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실천이 발견되었다. 옛날에 사용되던 기술들은 초기 사람들의 일상 생활로부터 부수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일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아담이 도래하기 전까지 진화적으로 진보하던 인류에게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약 50만 년 전에 도기를 만드는 방법이 영주의 참모진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지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은 150,000년 이상 동안 실질적으로 사라져 버렸었다. 그 만(灣)의 해안에 있었던 수메르인의 조상인 낫-사람들만이 계속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담 시대 동안에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보급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막 지대의 확장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동반구(東半球)로 퍼져나간 개선된 기법의 계속적인 물결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안드-사람 시대의 이 문명들은, 그들의 도기류 또는 다른 기술들의 단계에 의해서 항상 추적될 수는 없다. 인간 진화의 완만한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체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뒤엎혔다. 후대의 항아리들과 도구들이 순수한 안드-사람 민족들이 만든 그 이전의 생산품들보다도 더 열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tops were then brought together, making the skeleton frame for the hut, which was interlaced with transverse reeds, the whole creation resembling a huge inverted basket. This structure could then be daubed over with clay and, after drying in the sun, would make a very serviceable weatherproof habitation.

81:2.18 (902.8) It was from these early huts that the subsequent idea of all sorts of basket weaving independently originated. Among one group the idea of making pottery arose from observing the effects of smearing these pole frameworks with moist clay. The practice of hardening pottery by baking was discovered when one of these clay-covered primitive huts accidentally burned. The arts of olden days were many times derived from the accidental occurrences attendant upon the daily life of early peoples. At least, this was almost wholly true of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mankind up to the coming of Adam.

81:2.19 (903.1) While pottery had been first introduced by the staff of the Prince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e making of clay vessels had practically ceased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Only the gulf coast pre-Sumerian Nodites continued to make clay vessels. The art of pottery making was revived during Adam's time. The dissemination of this art was simultaneous with the extension of the desert areas of Africa, Arabia, and central Asia, and it spread in successive waves of improving technique from Mesopotamia out over the Eastern Hemisphere.

81:2.20 (903.2) These civilizations of the Andite age cannot always be traced by the stages of their pottery or other arts. The smooth course of human evolution was tremendously complicated by the regimes of both Dalamatia and Eden. It often occurs that the later vases and implements are inferior to the earlier products of the purer Andite peoples.

제 3 장. 도시와 제조업과 상업

기원전 약 12,000년부터 시작하여, 풍부하고 광활한 목초지로 구성된 투르케스탄의 사냥터와 방목지가 기후조건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천연 그대로의 제조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길들여진 짐승 떼를 기르는 일로 돌아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경민이 되거나 물위에 떠있는 음식물을 수집하기도 하였지만, 보다 높은 형태의 안드-사람 지성인들은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선택하였다. 단일 종목 산업의 개발에 자신들을 바치는 것이 전체 부족들의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나일 계곡으로부터 힌두쿠시까지 그리고 갠지스 강으로부터 황하까지, 우월한 부족들의 주요 업무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3. CITIES, MANUFACTURE, AND COMMERCE

81:3.1 (903.3) The climatic destruction of the rich, open grassland hunting and grazing grounds of Turkestan, beginning about 12,000 B.C., compelled the men of those regions to resort to new forms of industry and crude manufacturing. Some turned to the cultivation of domesticated flocks, others became agriculturists or collectors of water-borne food, but the higher type of Andite intellects chose to engage in trade and manufacture. It even became the custom for entire tribes to dedicate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a single industry. From the valley of the Nile to the Hindu Kush and from the Ganges to the Yellow River, the chief business of the superior tribes

되었으며, 상업은 부업으로 겸하였다.

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상업용 물품들을 만들고 거래하는 일의 증대는, 그러한 초기의 상당히 평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공동체는 문명의 기술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광대한 세계 무역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회 공동체는 부족—확대된 가족 집단들—이었다. 거래를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교류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하여 문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섞이도록 기여하였다.

약 12,000년 전에, 독립된 도시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적인 거래와 제조업을 하는 도시들은 농업과 가축을 기르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활수준이 증진됨으로써 산업이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개량된 초기 도시 생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초기의 종족들은 매우 깔끔하고 정결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순전히 먼지와 쓰레기가 쌓임으로써 원시적인 촌락은 매 25년마다 평균 1내지 2피트씩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옛 도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변의 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는데, 불에 굽지 않은 진흙으로 지은 그들의 오두막이 오래 지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 것이 허물어진 자리 위에 바로 새 집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금속의 보편적인 사용은, 초기의 산업 그리고 상업 도시들이 이루어지던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너희는 이미 기원전 9,00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동 문화를 투르크메스탄에서 발견하였으며, 안드-사람들은 석와 금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로 잘 다루는 기술을 일찍부터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진보된 문명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그러한 곳에는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와 같은 뚜렷한 기간 구분이 없었다; 세 가지 모두가 다른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하였다.

금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쓴 최초의 금속이었는데; 가공하기가 쉬웠고, 처음에는 장식품으로만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것은 구리였지만, 주석(朱錫)을 섞어서 보다 강한 청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은 투르크메스탄의 아담아들-사람들 중의 하나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사는 고지대의 구리 광산이 우연히 주석 퇴적층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이었다.

미숙한 제조업이 출현하고 산업이 시작되면서, 문화적인 문명의 보급에 있어서 상업이 신속하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 개설로 인하여 여행이 크게 촉진되었고 문화의 혼합은 물론 문명의 융합이 크게 촉진되었다. 기원전 5,000년경에는, 문명화된 지역과 반(半)문명화된 지역 전체에서 말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이러한 후대의 종족들은 길들여진 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became the cultivation of the soil, with commerce as a side line.

81:3.2 (903.4) The increase in trade and in the manufacture of raw materials into various articles of commerce was directly instrumental in producing those early and semipeaceful communities which were so influential in spreading the culture and the arts of civilization. Before the era of extensive world trade, social communities were tribal — expanded family groups. Trade brought into fellowship different sorts of human beings, thus contributing to a more speedy cross-fertilization of culture.

81:3.3 (903.5) About twelve thousand years ago the era of the independent cities was dawning. And these primitive trading and manufacturing cities were always surrounded by zones of agriculture and cattle raising. While it is true that industry was promoted by the elevation of the standards of living, you should have no misconception regarding the refinements of early urban life. The early races were not overly neat and clean, and the average primitive community rose from one to two feet every twenty-five years as the result of the mere accumulation of dirt and trash. Certain of these olden cities also rose above the surrounding ground very quickly because their unbaked mud huts were short-lived, and it was the custom to build new dwellings directly on top of the ruins of the old.

81:3.4 (903.6) The widespread use of metals was a feature of this era of the early industrial and trading cities. You have already found a bronze culture in Turkestan dating before 9000 B.C., and the Andites early learned to work in iron, gold, and copper, as well. But conditions were very different away from the more advanced centers of civilization. There were no distinct periods, such as the Stone, Bronze, and Iron Ages; all three existed at the same time in different localities.

81:3.5 (904.1) Gold was the first metal to be sought by man; it was easy to work and, at first, was used only as an ornament. Copper was next employed but not extensively until it was admixed with tin to make the harder bronze. The discovery of mixing copper and tin to make bronze was made by one of the Adamsonites of Turkestan whose highland copper mine happened to be located alongside a tin deposit.

81:3.6 (904.2) With the appearance of crude manufacture and beginning industry, commerce quickly became the most potent influence in the spread of cultural civilization. The opening up of the trade channels by land and by sea greatly facilitated travel and the mixing of cultures as well as the blending of civilizations. By 5000 B.C. the horse was in general use throughout civilized and semicivilized lands. These later races not only had

의 짐마차와 전차(戰車)들을 갖추고 있었다. 오래 전에, 바퀴가 사용되었지만, 이때에는 운송 매체가 그렇게 갖추어져서 상업과 전쟁에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다른 모든 영향력들이 합쳐진 것보다도, 여행하는 상인과 방랑하는 탐험가가, 역사상의 문명에 더 많은 진보를 이룩하였다. 후대의 종교들에 의해서 조성된 군사적 정복과 식민지화 그리고 선교사 체계 역시 문화를 보급시키는 요인들이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급속도로 개발되는 기술과 산업 과학에 의해서 계속 속도가 빨라진 무역관계 다음 가는 2차적인 것이었다.

아담의-혈통이 인간 종족들 속으로 주입됨으로써, 문명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험을 향한 그들의 성향을 크게 자극시키고 세상 끝까지 탐험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안드-사람 후손들에 의해서 점유되었다.

제 4 장. 혼합된 종족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유라시아 전역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은 혼합된 인류 종족들로 온통 뒤덮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종족들은 유라시아의 5가지 기본적인 인간 혈통들이 섞이고 다시 섞임으로써 형성되었다.

각각의 유라시아 종족들은 어떤 특색 있는 육체적 특징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인된다. 아담-사람들과 낯-사람들은 머리가 길며; 안돈-사람들은 머리가 넓다. 산각 종족들은 중간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고, 황색 인종과 청색 인종은 머리가 넓은 경향이 있다. 청색 인종은, 안돈-사람의 혈통과 섞이게 되었을 때, 뚜렷하게 넓은 머리를 갖게 되었다. 2차 산각 종족들은 중간 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었다.

비록 이러한 두개골 규모들이 종족의 기원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골격 전체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유라시아 종족들의 초기 발전에는 기원적으로 다섯 가지 다른 유형의 골격 구조가 있었다:

1. 안돈계열, 유라시아 최초의 형태.
 2. 1차 산각,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
 3. 2차 산각,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
 4. 낯-사람들, 달라마시아인 들의 후손.
 5. 아담-사람들, 보라색 인종.
- 이러한 다섯 가지의 큰 종족 집단들이 광범하

the domesticated horse but also various sorts of wagons and chariots. Ages before, the wheel had been used, but now vehicles so equipped became universally employed both in commerce and war.

81:3.7 (904.3) The traveling trader and the roving explorer did more to advance historic civilization than all other influences combined. Military conquests, colonization, and missionary enterprises fostered by the later religions were also factors in the spread of culture; but these were all secondary to the trading relations, which were ever accelerated by the rapidly developing arts and sciences of industry.

81:3.8 (904.4) Infusion of the Adamic stock into the human races not only quickened the pace of civilization, but it also greatly stimulated their proclivities toward adventure and exploration to the end that most of Eurasia and northern Africa was presently occupied by the rapidly multiplying mixed descendants of the Andites.

4. THE MIXED RACES

81:4.1 (904.5) As contact is made with the dawn of historic times, all of Eurasia, northern Africa, and the Pacific Islands is overspread with the composite races of mankind. And these races of today have resulted from a blending and reblending of the five basic human stocks of Urantia.

81:4.2 (904.6) Each of the Urantia races was identified by certain distinguishing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Adamites and Nodites were long-headed; the Andonites were broad-headed. The Sangik races were medium-headed, with the yellow and blue men tending to broad-headedness. The blue races, when mixed with the Andonite stock, were decidedly broad-headed. The secondary Sangiks were medium- to long-headed.

81:4.3 (904.7) Although these skull dimensions are serviceable in deciphering racial origins, the skeleton as a whole is far more dependabl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Urantia races there were originally five distinct types of skeletal structure:

81:4.4 (904.8) 1. Andonic, Urantia aborigines.

81:4.5 (904.9) 2. Primary Sangik, red, yellow, and blue.

81:4.6 (904.10) 3. Secondary Sangik, orange, green, and indigo.

81:4.7 (904.11) 4. Nodites, descendants of the Dalamatians.

81:4.8 (904.12) 5. Adamites, the violet race.

81:4.9 (904.13) As these five great racial groups

게 서로 섞였는데, 혼합이 계속될수록 산각의 유전적 지배력에 의해서 안돈-사람 유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라플란드 사람들과 에스키모들은 안돈-사람과 산각-청색 인종이 혼합된 종족들이다. 그들의 골격 구조는 기원적인 안돈의-유형과 거의 근접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담-사람들과 노드-사람들은 다른 종족들과 너무도 심하게 섞였기 때문에, 일반화된 코카서스 인종 계층으로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나간 2만 년 전의 인간 유골들이 발견되더라도, 다섯 가지의 원형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골격 구조의 연구는, 인류가 현재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1. 코카서스 인종—안드-사람이 노드-사람과 아담의-혈통들과 섞이고, 나아가서는 1차 그리고 (약간의) 2차 산각 혼합 혈통에 의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안돈의-교배에 의해서 변형되었음. 서방의 백색 인종들과 약간의 인도인들 그리고 우랄 알타이 어족(語族)의 민족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다. 이 계열의 통합하는 요소는 안드-사람 유전자가 아주 많든지 또는 아주 적든지 하는 것이다.

2. 몽고 인종—기원적인 적색과 황색 그리고 청색 인종들을 포함하는 1차 산각 유형. 중국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몽고 인종 유형이 2차 산각과 안돈의-혼혈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안드-사람이 주입됨으로써 더욱 변형되었다. 말레이 사람과, 다른 인도네시아 인종들은, 높은 비율의 2차 산각 혈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열에 속한다.

3. 흑인종—기원적으로 오렌지색과 녹색 그리고 남색 인종을 포함하는 2차 산각 유형. 이것은 흑인에 의해서 가장 잘 예증되는 유형이며,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견되고 2차 산각 종족이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다.

북부의 중국에서는 코카서스 종족과 몽고 종족 유형이 섞인 어떤 혼혈이 있고, 레반트 지역에서는 코카서스 종족과 흑종족이 서로 섞였으며; 인도에서는 남아메리카처럼 세 가지 유형들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골격 특징들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지금-현재 인간 종족들의 후대 조상들을 정체성 확인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제 5 장. 문화적 사회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문명이 반드시 상관관계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시대든지 유기체적 진화는 문화적 쇠퇴의 바로 한가운데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역사의 긴 기간들을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진화와 문화가 인과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화는 문화가 없는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문화적 문명은 인종적인 발달이 선행되는 충분한 바탕이 없이

extensively intermingled, continual mixture tended to obscure the Andonite type by Sangik hereditary dominance. The Lapps and the Eskimos are blends of Andonite and Sangik-blue races. Their skeletal structures come the nearest to preserving the aboriginal Andonic type. But the Adamites and the Nodites have become so admixed with the other races that they can be detected only as a generalized Caucasoid order.

81:4.10 (905.1) In general, therefore, as the human remains of the last twenty thousand years are unearthed, it will be impossible clearly to distinguish the five original types. Study of such skeletal structures will disclose that mankind is now divided into approximately three classes:

81:4.11 (905.2) 1. *The Caucasoid* — the Andite blend of the Nodite and Adamic stocks, further modified by primary and (some) secondary Sangik admixture and by considerable Andonic crossing. The Occidental white races, together with some Indian and Turanian peoples, are included in this group. The unifying factor in this division is the greater or lesser proportion of Andite inheritance.

81:4.12 (905.3) 2. *The Mongoloid* — the primary Sangik type, including the original red, yellow, and blue races. The Chinese and Amerinds belong to this group. In Europe the Mongoloid type has been modified by secondary Sangik and Andonic mixture; still more by Andite infusion. The Malayan and other Indonesian peoples are included in this classification, though they contain a high percentage of secondary Sangik blood.

81:4.13 (905.4) 3. *The Negroid* — the secondary Sangik type, which originally included the orange, green, and indigo races. This is the type best illustrated by the Negro, and it will be found through Africa, India, and Indonesia wherever the secondary Sangik races located.

81:4.14 (905.5) In North China there is a certain blending of Caucasoid and Mongoloid types; in the Levant the Caucasoid and Negroid have intermingled; in India, as in South America, all three types are represented. And the skelet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surviving types still persist and help to identify the later ancestry of present-day human races.

5. CULTURAL SOCIETY

81:5.1 (905.6) Biologic evolution and cultural civilization are not necessarily correlated; organic evolution in any age may proceed unhindered in the very midst of cultural decadence. But when lengthy periods of human history are surveyed, it will be observed that eventually evolution and culture become related as cause and effect. Evolution may advance in the absence of culture,

는 번창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인간 사회의 진보와 상관없는 문명의 기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피는 종족들의 천부적인 능력을 증강시켜 주었고 경제적 발전과 산업 진보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다. 아담이 증여됨으로써 종족들의 두뇌 힘이 향상되었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인 진보의 진행이 촉진되었다.

농업과 동물 길들이기 그리고 개선된 고안권 축물을 통하여, 인류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최악의 것을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으로 삶의 과정을 상쾌하게 만들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는 보다 높은 그리고 계속 높아지는 표준을 위하여 분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람은 제조업과 산업을 통하여 필사자 삶의 유쾌한 만족감을 점차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구성원으로 그리고 총체적인 평등으로 그 속에서 태어나도록 상속받는 특권을 가질 만큼 훌륭하고 인정 많은 단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귀하고도 영원히 진보하는 조합과 같은데,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후세에 생활하고 전진해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숭고하게 분투하는 사람들만이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명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엄하고 혹독한 단련이 강요되고, 모든 반대자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사회의 일반적인 위험과 인종적인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증강된 안전보장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자유나 특권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적인 관계적-연합은, 인간 존재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이 유익하다는, 생존을 위한 대비책의 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별 존재들은, 이러한 증대된 집단적 보호를 위한 반대급부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자아-희생과 개인적-해방의 삭감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현재의 사회적 기능구조는, 인간 종족의 초기 체험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혹독하고도 반(反)사회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어느 정도의 보장과 보호가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행착오적 대비책이다.

그래서 사회는, 관습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자본 그리고 발명을 통한 경제적 자유와, 문화를 통한 사회적 해방, 그리고 치안 규정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협조적 조직이 되어간다.

권력이 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어지는 각 세대에서의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권리들을 강요한다. 정부의 우선적인 임무는 권리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고, 계층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규정을 제정하며, 법이 정

but cultural civilization does not flourish without an adequate background of antecedent racial progression. Adam and Eve introduced no art of civilization foreign to the progress of human society, but the Adamic blood did augment the inherent ability of the races and did accelerate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progression. Adam's bestowal improved the brain power of the races, thereby greatly hastening the processes of natural evolution.

81:5.2 (905.7) Through agriculture, animal domestication, and improved architecture, mankind gradually escaped the worst of the incessant struggle to live and began to cast about to find wherewith to sweeten the process of living;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triving for higher and ever higher standards of material comfort. Through manufacture and industry man is gradually augmenting the pleasure content of mortal life.

81:5.3 (906.1) But cultural society is no great and beneficent club of inherited privilege into which all men are born with free membership and entire equality. Rather is it an exalted and ever-advancing guild of earth workers, admitting to its ranks only the nobility of those toilers who striv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n which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may live and advance in subsequent ages. And this guild of civilization exacts costly admission fees, imposes strict and rigorous disciplines, visits heavy penalties on all dissenters and nonconformists, while it confers few personal licenses or privileges except those of enhanced security against common dangers and racial perils.

81:5.4 (906.2) Social association is a form of survival insurance which human beings have learned is profitable; therefore are most individuals willing to pay those premiums of self-sacrifice and personal-liberty curtailment which society exacts from its members in return for this enhanced group protection. In short, the present-day social mechanism is a trial-and-error insurance plan designed to afford some degree of assurance and protection against a return to the terrible and antisocial conditions which characterized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human race.

81:5.5 (906.3) Society thus becomes a co-operative scheme for securing civil freedom through institutions, economic freedom through capital and invention, social liberty through culture, and freedom from violence through police regulation.

81:5.6 (906.4) *Might does not make right, but it does enforce the commonly recognized rights of each succeeding generation.* The prime mission of government is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he just and fair regulation of class differences, and the enforcement of equality of opportunity under the

하는 규칙에 의거하여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임무와 결합되어 있다; 집단의 혜택은, 집단의 봉사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을 충분히 지불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보호기능구조이다. 그리고 집단의 권리들은, 개별존재의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성(性) 성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집단적 규정에 종속되는 자유는 사회적 진화의 합리적인 목표이다. 제한이 없는 자유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인간 마음의 헛되고 공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제 6 장. 문명의 유지

생물학적인 진화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문화적 진화의 대부분은 물결을 이루면서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부터 밖으로 퍼져 나갔고, 그 물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약화되어 마침내는 순수-혈통을 가진 아담의-후대 전체가 흩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종족들의 피가 충분히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정도로 혼합되었다. 문화는 서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 문명은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화 자원, 문명 진화의 느린 발전을 고무시키고 자극할 그 어떤 안드-사람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문명은 다 음과 같은 요소에서 자라났고 현재에도 그것에 입각하고 있다:

1. 자연 환경. 물질문명의 성질과 범위는 이용 가능한 자연 자원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문화의 진화에 있어서, 기후와 날씨 그리고 수많은 물리적 조건들이 요인이 된다.

안드-사람 시대가 시작될 때, 광대하고 비옥한 무방비 상태의 사냥터가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북아메리카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퍼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투르케스탄의 북부에 있었고 안돈 자손과 합쳐진 황색 인종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남서부 아시아에 있는 우월한 문화의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인종과 기후였다. 안드-사람들은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문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요인은 이란과 투르케스탄 그리고 신경 지역이 점점 더 건조한 지대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줄어드는 비옥한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도 발전된 방법을 발명하고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륙의 지형과 땅의 분포에 따른 다른 상황들은, 평화와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아메리카—실천적으로 온 사방이 광대한 해양으로 보호된 곳—에 있는 민족들이 누렸던 것만큼, 곤란을 받지 않고 계속적인 유리한 발전 기회를 가졌던 유란시아인 들은 거의 없다.

rules of law. Every human right is associated with a social duty; group privilege is an insurance mechanism which unfailingly demands the full payment of the exacting premiums of group service. And group rights, as well as those of the individual, must be protected, including the regulation of the sex propensity.

81:5.7 (906.5) Liberty subject to group regulation is the legitimate goal of social evolution. Liberty without restrictions is the vain and fanciful dream of unstable and flighty human minds.

6. THE MAINTENANCE OF CIVILIZATION

81:6.1 (906.6) While biologic evolution has proceeded ever upward, much of cultural evolution went out from the Euphrates valley in waves, which successively weakened as time passed until finally the whole of the pure-line Adamic posterity had gone forth to enrich the civilizations of Asia and Europe. The races did not fully blend, but their civilizations did to a considerable extent mix. Culture did slowl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this civilization must be maintained and fostered, for there exist today no new sources of culture, no Andites to invigorate and stimulate the slow progress of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81:6.2 (906.7) The civilization which is now evolving on Urantia grew out of, and is predicated on, the following factors:

81:6.3 (906.8) 1. *Natural circumstances.* The nature and extent of a material civilization is in large measure determined by the natural resources available. Climate, weather, and numerous physical conditions ar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culture.

81:6.4 (907.1) At the opening of the Andite era there were only two extensive and fertile open hunting areas in all the world. One was in North America and was overspread by the Amerinds; the other was to the north of Turkestan and was partly occupied by an Andonic-yellow race. The decisiv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a superior culture in southwestern Asia were race and climate. The Andites were a great people, but the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course of their civilization was the increasing aridity of Iran, Turkestan, and Sinkiang, which forced them to invent and adopt new and advanced methods of wresting a livelihood from their decreasingly fertile lands.

81:6.5 (907.2) The configuration of continents and other land-arrangement situations are very influential in determining peace or war. Very few Urantians have ever had such a favorable opportunity for continuous and unmolested development as has been enjoyed by the peoples

2. 자본재(資本財). 빈곤한 상황 속에서는 문화가 발전될 수 없으며; 여가 시간은 문명 진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갖는 개별존재 성격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없이도 획득될 수 있지만, 문화적 문명은 열망과 병합된 여가 시간을 육성시키는 물질적 번영이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조성될 수 있다.

원시 시대 동안, 유란시아에서의 생활은 심각하고도 냉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열대지방의 쾌적한 기후 쪽으로 이동하려는 계속적인 경향은 끊임없는 투쟁과 끝없는 고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주지에서의 이들 비교적 따뜻한 지역은 실존을 위한 격렬한 투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감면을 잘 제공하였지만 반면,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한 종족들과 부족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여가 시간을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였다. 사회적인 진보는 반드시, 힘을 덜 들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땅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유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획득한 유익한 남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자신들의 지능적인 수고에 의해서 터득한, 그 종족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발생된다.

3. 과학적 지식. 문명의 물질적인 측면은 언제나 반드시 누적된 과학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물과 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힘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과 활과 화살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때로부터, 증기와 전기를 활용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수단들은 서서히 개선되었다. 옷감을 짜고 도기를 제작하며 동물들을 길들이고 금속을 가공한 후에, 글을 쓰고 인쇄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지식은 힘이다. 발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문화 발전이 전(全)세계적으로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과학과 발명은 특히 인쇄 출판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모든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의 상호 작용은 문화적 발달 정도를 엄청나게 가속화 시켰다.

과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도록 가르치며, 전체적으로 정확성을 요구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한 과학은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원리를 정착시키는 반면,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종교를 정화시킨다.

4. 인적(人的) 자원. 인력은 문명의 보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숫자가 많은 민족이 보다 적은 인종의 문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증가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운명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되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멸하게 된다. 정상적인 단위 면적당 인구 비율의 최적치를 넘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다

of North America — protected on practically all sides by vast oceans.

81:6.6 (907.3) 2. *Capital goods*. Culture is never developed under conditions of poverty; leisure is essential to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ndividual character of moral and spiritual value may be acquired in the absence of material wealth, but a cultural civilization is only derived from those conditions of material prosperity which foster leisure combined with ambition.

81:6.7 (907.4) During primitive times life on Urantia was a serious and sober business. And it was to escape this incessant struggle and interminable toil that mankind constantly tended to drift toward the salubrious climate of the tropics. While these warmer zones of habitation afforded some remission from the intense struggle for existence, the races and tribes who thus sought ease seldom utilized their unearned leisure for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Social progress has invariably come from the thoughts and plans of those races that have, by their intelligent toil, learned how to wrest a living from the land with lessened effort and shortened days of labor and thus have been able to enjoy a well-earned and profitable margin of leisure.

81:6.8 (907.5) 3. *Scientific knowledge*. The material aspects of civilization must always await the accumulation of scientific data. It was a long time after the discovery of the bow and arrow and the utilization of animals for power purposes before man learned how to harness wind and water, to be followed by the employment of steam and electricity. But slowly the tools of civilization improved. Weaving, pottery, the domestication of animals, and metalworking were followed by an age of writing and printing.

81:6.9 (907.6) Knowledge is power. Invention always precedes the acceler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on a world-wide scale. Science and invention benefited most of all from the printing press, and the interaction of all these cultural and inventive activities has enormously accelerated the rate of cultural advancement.

81:6.10 (907.7) Science teaches man to speak the new language of mathematics and trains his thoughts along lines of exacting precision. And science also stabilizes philosophy through the elimination of error, while it purifies religion by the destruction of superstition.

81:6.11 (907.8) 4. *Human resources*. Man power is indispensable to the spread of civilization. All things equal, a numerous people will dominate the civilization of a smaller race. Hence failure to increase in numbers up to a certain point prevents the full realization of national destiny, but there comes a point in population increase where further growth is suicidal. Multiplication of numbers

는 것은, 생활수준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거나, 평화적인 침투에 의해서 또는 군사적인 정복, 강제적인 점령에 의해서 영토 경계선을 즉각적으로 확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너희는 때로 전쟁의 참혹한 피해로 인해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지구의 출생률이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곧 인구 과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들은 크기가 작다. 유란시아는 아마 평균보다 약간 작은 크기일 것이다. 국가의 인구를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킴으로써 문화를 증진시키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인구 성장을 멈출 것인가를 아는 나라는 현명한 나라이다.

그러나 천연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발전된 기계 장비들을 갖춘 대륙이라도 그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감퇴된다면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교육에 의해 소유될 수 있지만, 참된 문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혜는 오직 체험에 의해서 그리고 타고난 지능을 갖춘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한 국민은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정말로 현명하게 될 수 있다.

5. 물질적 자원의 유효성. 천연 자원과 과학적 지식과 자본재 그리고 인간의 잠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지혜에 많은 것들이 의존한다. 초기 문명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는 현명한 사회적 지배자들에 의해서 발휘되는 기세이었다; 원시인은 동시대에 살던 그들의 우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강제로 안겨진 문명을 갖고 있었다. 주로 잘 조직되고 우월한 소수들이 세상을 지배하였다.

권력이 정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 안에서 있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낸다. 유란시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사회가 권력과 권리의 윤리 문제에 대해 기꺼이 토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6. 언어의 유효성. 언어가 형성될 때까지 문명은 확산되지 못한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언어들은 문명화된 사고와 계획의 확산을 보증해 준다. 초기 시대 동안에 언어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진화하는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앞선 언어의 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언어는 집단들의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진화되었는데, 각각의 작은 집단들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체 체계를 갖고 있다. 언어는 몸짓, 손짓, 울음소리, 흉내 내는 음성, 억양, 그리고 강약을 통하여 발전하고 나중에는 알파벳이 유성음으로 되기까지 이른다. 언어는 사람의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봉사할 수 있는, 사고하는 도구이지만, 사회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 전에는 번창하지 않는다. 언어를 구사하려는

beyond the optimum of the normal man-land ratio means either a lowering of the standards of living or an immediate expansion of territorial boundaries by peaceful penetration or by military conquest, forcible occupation.

81:6.12 (908.1) You are sometimes shocked at the ravages of war, but you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for producing large numbers of mortals so as to afford ample opportunity for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with such planetary fertility there soon occurs the serious problem of overpopulation. Most of the inhabited worlds are small. Urantia is average, perhaps a trifle undersized. The optimum stabilization of national population enhances culture and prevents war. And it is a wise nation which knows when to cease growing.

81:6.13 (908.2) But the continent richest in natural deposits and the most advanced mechanical equipment will make little progress if the intelligence of its people is on the decline. Knowledge can be had by education, but wisdom, which is indispensable to true culture, can be secured only through experience and by men and women who are innately intelligent. Such a people are able to learn from experience; they may become truly wise.

81:6.14 (908.3) 5. *Effectiveness of material resources.* Much depends on the wisdom displayed in th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scientific knowledge, capital goods, and human potentials. The chief factor in early civilization was the force exerted by wise social masters; primitive man had civilization literally thrust upon him by his superior contemporaries. Well-organized and superior minorities have largely ruled this world.

81:6.15 (908.4) Might does not make right, but might does make what is and what has been in history. Only recently has Urantia reached that point where society is willing to debate the ethics of might and right.

81:6.16 (908.5) 6. *Effectiveness of language.* The spread of civilization must wait upon language. Live and growing languages insure the expansion of civilized thinking and planning. During the early ages important advances were made in language. Today, there is great need for further linguistic development to facilitate the expression of evolving thought.

81:6.17 (908.6) Language evolved out of group associations, each local group developing its own system of word exchange. Language grew up through gestures, signs, cries, imitative sounds, intonation, and accent to the vocalization of subsequent alphabets. Language is man's greatest and most serviceable thinking tool, but it never flourished until social groups acquired some leisure. The tendency to play with language

성향이 새로운 말—속어—를 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관습이 그것을 언어화한다. 사투리들의 기원은 어느 가족 집단에서 발견되는 “아기의 말투” 속에 있는 다양함에 의해서 설명된다.

언어의 차이는 평화의 확장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문화가 종족 전체에, 대륙 전체에, 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언어의 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언어는 평화를 증진시키고 문화를 지켜주며, 행복을 증강시킨다. 세계의 언어들이 몇 개로 줄어들 수만 있어도, 뛰어난 문화 민족들이 이것들을 숙달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에 힘차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적인 언어가 개발되는 면에서는 유란시아에서 거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상업적 교류의 수립에 의해서 많이 성취되어 왔다. 언어, 상업, 예술, 과학, 경쟁적인 시합, 또는 종교 등 어떤 면에서든지, 이러한 모든 국제적 관계들이 육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7. 기계 장치들의 유효성. 문명의 진보는 도구들과 기계를 그리고 보급 통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개선된 도구들,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기계들이 진보하는 문명의 경기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집단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 시대에는, 땅을 경작하는 데 이용되는 유일한 에너지는 인력이었다. 사람 대신에 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기계가 사람들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발전들은 모두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데, 왜냐하면 인력을 해방시켜서 보다 가치 있는 임무를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는 과학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크게 해방시켜준다. 그 지적 차원이 너무 낮아서, 노동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가 너무 빨리 발명됨으로써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대량의 고용 감소에서 야기되는 과도기적 난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만큼 현명한 방법과 확실한 기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에만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계 시대가 입증할 수 있다.

8. 계몽가의 성격. 사회적인 유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앞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와 지식에 무엇이든지 기여한 모든 사람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해준다. 문화적인 횡불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가정은 언제나 기본적인 교육장소가 될 것이다. 오락과 사교적인 삶이 그 다음에 오고, 학교가 마지막 순서이지만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곤충들은 삶—정말로 매우 한정적이고 순진

develops new words — slang. If the majority adopt the slang, then usage constitutes it language. The origin of dialects is illustrated by the indulgence in “baby talk” in a family group.

81:6.18 (908.7) Language differences have ever been the great barrier to the extension of peace. The conquest of dialects must precede the spread of a culture throughout a race, over a continent, or to a whole world. A universal language promotes peace, insures culture, and augments happiness. Even when the tongues of a world are reduced to a few, the mastery of these by the leading cultural peoples mightily influences the achievement of world-wide peace and prosperity.

81:6.19 (908.8) While very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on Urantia toward developing an international language, mu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exchange. And all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fostered, whether they involve language, trade, art, science, competitive play, or religion.

81:6.20 (909.1) 7. *Effectiveness of mechanical devices.*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tools, machines, and channels of distribution. Improved tools, ingenious and efficient machines, determine the survival of contending groups in the arena of advancing civilization.

81:6.21 (909.2) In the early days the only energy applied to land cultivation was man power. It was a long struggle to substitute oxen for men since this threw men out of employment. Latterly, machines have begun to displace men, and every such advance is directly contributory to the progress of society because it liberates man power for the accomplishment of more valuable tasks.

81:6.22 (909.3) Science, guided by wisdom, may become man's great social liberator. A mechanical age can prove disastrous only to a nation whose intellectual level is too low to discover those wise methods and sound techniques for successfully adjusting to the transition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sudden loss of employment by large numbers consequent upon the too rapid invention of new types of laborsaving machinery.

81:6.23 (909.4) 8. *Character of torchbearers.* Social inheritance enables man to stand on the shoulders of all who have preceded him, and who have contributed aught to the sum of culture and knowledge. In this work of passing on the cultural torch to the next generation, the home will ever be the basic institution. The play and social life comes next, with the school last but equally indispensable in a complex and highly organized society.

81:6.24 (909.5) Insects are born fully educated and

히 본능적인 실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되고 준비를 갖춘 상태로 태어난다. 갓난아기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린 세대를 교육적인 훈련을 통제함으로써, 문명의 진화적 경로를 크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문명 촉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은, 세계적인 여행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교통 수단의 놀라운 향상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향상은, 사회적 구조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 역시 훨씬 더 순수한 지적인 계통들과 과학적인 계통들이 성장하는 정도와 대응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영적인 개발과 가정교육 기관의 보호에 있어서 정지 상태에 있다.

9. 인종적인 이상들. 한 세대의 이상들은 직계 후손을 위한 운명적 경로를 개척한다. 사회적 계몽가의 본질특성은 문명이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어느 한 세대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는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의 성격 경향을 미리 결정한다. 어느 종족 또는 국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추진력이 주로 그 문명의 문화 속도를 결정한다.

이상은 사회적 흐름의 근원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그 어떤 흐름도 어떤 기법의 압력이 가해지든지 또는 어떤 기법의 방향 통제가 사용되든지 간에, 그 근원보다 조금도 높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적 문명의 대부분의 물질적인 양상들조차도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공동체의 성취에서 가장 물질 성향이 적은 것 안에 내재하고 있다. 지성은 문명의 기능구조를 통제할 수 있고, 지혜는 그 방향을 지도할 수 있지만, 영적 이상주의는 인간 문화를 실제로 달성의 어느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키고 향상시키는 에너지이다.

처음에는 삶이 실존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을 위한 투쟁이다; 다음에는 인간 실존의 도래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목표인 생각의 본질특성을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10. 전문가들의 조화-협동. 문명은 초기의 분업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화되는 결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진보되었다. 문명은 이제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조화-협동에 의존한다.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단결시키는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사회와 예술 그리고 기술과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술과 솜씨에 있어서 계속해서 증대되고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화-협동과 협력의 효과적인 수단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양화된 재능과 다변화된 고용은 결국에는 인간 사회를 약화시키고 집대성을-해체할 것이다. 그러

equipped for life — indeed, a very narrow and purely instinctive existence. The human baby is born without an education; therefore man possesses the power, by controlling the educational training of the younger generation, greatly to modify the evolutionary course of civilization.

81:6.25 (909.6) The greatest twentieth-century influences contributing to the furtherance of civi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culture are the marked increase in world travel and the unparalleled improvements in methods of communication. But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has not kept pace with the expanding social structure; neither has the modern appreciation of ethics developed in correspondence with growth along more purely intellectual and scientific lines. And modern civilization is at a standstill in spiritual development and the safeguarding of the home institution.

81:6.26 (909.7) 9. *The racial ideals.* The ideals of one generation carve out the channels of destiny for immediate posterity. The *quality* of the social torchbearers will determine whether civilization goes forward or backward. The homes, churches, and schools of one generation predetermine the character trend of the succeeding generation. The moral and spiritual momentum of a race or a nation largely determines the cultural velocity of that civilization.

81:6.27 (909.8) Ideals elevate the source of the social stream. And no stream will rise any higher than its source no matter what technique of pressure or directional control may be employed. The driving power of even the most material aspects of a cultural civilization is resident in the least material of society's achievements. Intelligence may control the mechanism of civilization, wisdom may direct it, but spiritual idealism is the energy which really uplifts and advances human culture from one level of attainment to another.

81:6.28 (910.1) At first life was a struggle for existence; now, for a standard of living; next it will be for quality of thinking, the coming earthly goal of human existence.

81:6.29 (910.2) 10. *Co-ordination of specialists.* Civilization has been enormously advanced by the early division of labor and by its later corollary of specialization. Civilization is now dependent on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specialists. As society expands, some method of drawing together the various specialists must be found.

81:6.30 (910.3) Social, artistic, technical, and industrial specialists will continue to multiply and increase in skill and dexterity. And this diversification of ability and dissimilarity of employment will eventually weaken and disintegrate human society if effective means of

한 발명과 그러한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지성은, 빠른 속도의 발명과 가속화된 속도의 문화 팽창에 의해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11. 일자리를 찾아주는 장치들. 다음 세대의 사회적 발전은, 계속 증가되고 확대되는 전문화에 대한 보다 훌륭하고 보다 효과적인 조화-협동과 협력 속에서 체현될 것이다. 그리고 분업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개별존재들로 하여금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어떤 기법이 고안되어야만 한다.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기계만이 실업의 원인은 아니다. 경제적인 복잡성과 산업적이고 전문적인 전공 분야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노동자를 배치하는 문제들이 부가되었다.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효과적인 방법들도 역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시민들에게 고도의 전문화된 기법을 생활 방법으로 훈련시켜주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일반적인 노동이나 장사 또는 직업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전문화된 직업에서 과도기로 실직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실직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호한다면 어떤 문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시민들이라도 공공 금고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면 조만간에 비뚤어지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 사적인 자선조차도, 신체가 건강한 시민들에게 오래 제공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한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는 옛 사람들의 오래 된 자치 단체적 그리고 봉건적 실천 관행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평범한 봉사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회화될 수 있지만, 고도로 훈련되고 과도하게 전문화된 인간 존재들은 지능적으로 협력하는 어떤 기법에 의해서 최대한 관리될 수 있다. 현대화된 조화-협동과 형제우애에서의 규정은, 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또는 독재적인 규제적 제도들의 오래되고 더욱 원시적인 방법보다, 더욱 오래-살아있는 협력을 낳을 것이다.

12. 기꺼이 협력하려는 의지. 인간 사회의 진보를 크게 방해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비교적 크고 더욱 사회화된 인간 집단들과 그리고 반(反)사회적-마음을 지닌 개개의 개별존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반대하는-마음을 지닌 반(反)사회적인 비교적 작은 인류 관계적-연합에서의 이익과 복지 사이의 충돌이다.

교육적 방법과 종교적 이상(理想)이 높은 유형의 애국심과 국가적인 헌신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국가적 문명도 오래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지능적 애국심과 문화적 단결이 없다면, 편협한 질투심과 지역적인 자아-이익의 결과로 모든 나라들은 집대성이-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not developed. But the intelligence which is capable of such inventiveness and such specialization should be wholly competent to devise adequate methods of control and adjustment for al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rapid growth of invention and the accelerated pace of cultural expansion.

81:6.31 (910.4) 11. *Place-finding devices.* The next age of social development will be embodied in a better and more effec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ever-increasing and expanding specialization. And as labor more and more diversifies, some technique for directing individuals to suitable employment must be devised. Machinery is not the only cause for unemployment among the civilized peoples of Urantia. Economic complexity and the steady increase of industrial and professional specialism add to the problems of labor placement.

81:6.32 (910.5) It is not enough to train men for work; in a complex society there must also be provided efficient methods of place finding. Before training citizens in the highly specialized techniques of earning a living, they should be trained in one or more methods of commonplace labor, trades or callings which could be utilized when they were transiently unemployed in their specialized work. No civilization can survive the long-time harboring of large classes of unemployed. In time, even the best of citizens will become distorted and demoralized by accepting support from the public treasury. Even private charity becomes pernicious when long extended to able-bodied citizens.

81:6.33 (910.6) Such a highly specialized society will not take kindly to the ancient communal and feudal practices of olden peoples. True, many common services can be acceptably and profitably socialized, but highly trained and ultraspecialized human beings can best be managed by some technique of intelligent co-operation. Modernized co-ordination and fraternal regulation will be productive of longer-lived co-operation than will the older and more primitive methods of communism or dictatorial regulative institutions based on force.

81:6.34 (910.7) 12.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One of the great hindrances to the progress of human society is th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larger, more socialized human groups and of the smaller, contrary-minded asocial associations of mankind, not to mention antisocially-minded single individuals.

81:6.35 (910.8) No national civilization long endures unless its educational methods and religious ideals inspire a high type of intelligent patriotism and national devotion. Without this sort of intelligent patriotism and cultural solidarity, all nations tend to disintegrate as a result of provincial jealousies and local self-interests.

세계적인 문명의 유지는, 인간 존재들이 서로 평화와 형제우애관계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다. 효과적인 조화-협동이 없다면, 산업 문명은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성 즉: 단조로움과 협소함 그리고 의심과 질투를 일으키려는 성향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13.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영도자관계. 문명 안에서, 많은 매우 많은 것이, 열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짐을-잡아당기는 영에 달려 있다. 만약에 열 사람이 함께—모두가 동시에 같이—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 작업—사회적 협동—은 영도자관계에 달려 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문명들은, 시민들이 지혜롭고도 진취적인 영도자들과 지능적으로 협동한 것에 기초를 두어 왔다; 그리고 사람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기까지는, 문명은 지혜롭고 활력 있는 영도자관계에 계속 의존될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들은, 물질적인 재산, 지적인 탁월성, 도덕적 가치, 사회적인 슬기, 그리고 조화우주 통찰력의 현명한 상호 관계로부터 탄생된다.

14. 사회적인 변화들. 사회는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진보적인 진화의 한 현상이다; 향상하는 문명은, 그 영도자들이 사회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지연되는데, 그 변화는 그 시대의 과학적인 발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관념이 색다르고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람은 사회라고 하는 기능구조를 실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문화적 조절에서의 이러한 모험들은 사회적 진화의 역사에 충분히 정통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자들은 심사숙고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실험의 권역에 실천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지혜자로부터 조언을 항상 받아야만 한다. 어떤 위대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변화라도 갑작스럽게 시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시간은 모든 유형의 인간적 조절—물리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절들만이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도 그것들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반향이 충분히 작동되기까지는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 문명이 어느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있을 때, 그 민족의 이상(理想)들은 위험한 기간 동안 최고의 후원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15. 과도기적 붕괴의 방지. 사회는 여러 시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탄생된다; 행성 상태에 있어서 동물의 차원으로부터 인간의 차원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상승한 연속적인 단계들 속에서 선택적인 조절들과 재(再)조절에도 불구하고

81:6.36 (911.1) The maintenance of world-wide civilization is dependent on human beings learning how to live together in peace and fraternity. Without effective co-ordination, industrial civilization is jeopardized by the dangers of ultraspecialization: monotony, narrowness, and the tendency to breed distrust and jealousy.

81:6.37 (911.2) 13. *Effective and wise leadership.* In civilization much, very much, depends on an enthusiastic and effective load-pulling spirit. Ten men are of little more value than one in lifting a great load unless they lift together — all at the same moment. And such teamwork — social co-operation — is dependent on leadership. The cultural civilization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have been based upon the intelligent co-operation of the citizenry with wise and progressive leaders; and until man evolves to higher levels, civilization will continue to be dependent on wise and vigorous leadership.

81:6.38 (911.3) High civilizations are born of the sagacious correlation of material wealth, intellectual greatness, moral worth, social cleverness, and cosmic insight.

81:6.39 (911.4) 14. *Social changes.* Society is not a divine institution; it is a phenomenon of progressive evolution; and advancing civilization is always delayed when its leaders are slow in making those changes in the social organization which are essential to keeping pace with the scientific developments of the age. For all that, things must not be despised just because they are old, neither should an idea be unconditionally embraced just because it is novel and new.

81:6.40 (911.5) Man should be unafraid to experiment with the mechanisms of society. But always should these adventures in cultural adjustment be controlled by those who are fully conversant with the history of social evolution; and always should these innovators be counseled by the wisdom of those who have had practical experience in the domains of contemplated social or economic experiment. *No great social or economic change should be attempted suddenly.* Time is essential to all types of human adjustment — physical, social, or economic. Only moral and spiritual adjustments can be made on the spur of the moment, and even these require the passing of time for the full outworking of their material and social repercussions. The ideals of the race are the chief support and assurance during the critical times when civilization is in transit from one level to another.

81:6.41 (911.6) 15. *The prevention of transitional breakdown.* Society is the offspring of age upon age of trial and error; it is what survived the selective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in the successive stages of mankind's age-long rise from

하고 살아남은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지 해당되는 큰 위험은—어느 순간이든지—이미 확립된 과거의 방법으로부터 새롭고도 더 나은 그러나 시도된 적이 없는 미래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 붕괴되는 징후이다.

영도자관계는 진보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선견지명은 나라들이 지탱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다. 문명은 유능한 영도자관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실제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갖춘 현명한 영도자관계들은 그 인구의 1퍼센트를 결코 넘지 않는다.

그리고 문명이 20세기의 급속하게 팽창되는 문화에서 절정을 이루어 온 그러한 힘찬 영향력이 개시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진화의 사다리에 걸쳐있는 이러한 가로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오직 이러한 필수 요소들에 밀착함으로써, 지금-현재의 자기 문명들을 유지하고 한편으로 그것들의 계속되는 발전과 확실한 생존이 제공되도록 희망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 시대 이후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길고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것에 대한 개요이다. 지금-현재의 문화는 이러한 분투적인 진화의 순수한 결과이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진보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조상들이 성취한 것들로부터 어느 한 세대가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이 투쟁해 온 모든 시대들의 누적된 추진력의 효과를 등에 업고 인간 사회가 앞으로 돌진해 나가고 있다.

[네바돈의 천사장에 의해서 후원됨]

animal to human levels of planetary status. The great danger to any civilization — at any one moment — is the threat of breakdown during the time of transition from the established methods of the past to those new and better, but untried, procedures of the future.

81:6.42 (911.7) Leadership is vital to progress. Wisdom, insight, and foresight are indispensable to the endurance of nations. Civilization is never really jeopardized until able leadership begins to vanish. And the quantity of such wise leadership has never exceeded one per cent of the population.

81:6.43 (911.8) And it was by these rungs on the evolutionary ladder that civilization climbed to that place where those mighty influences could be initiated which have culminated in the rapidly expanding culture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only by adherence to these essentials can man hope to maintain his present-day civilizations while providing for their continued development and certain survival.

81:6.44 (912.1) This is the gist of the long, long struggle of the peoples of earth to establish civilization since the age of Adam. Present-day culture is the net result of this strenuous evolution. Before the discovery of printing, progress was relatively slow since one generation could not so rapidly benefit from the achievements of its predecessors. But now human society is plunging forward under the force of the accumulated momentum of all the ages through which civilization has struggled.

81:6.45 (912.2) [Sponsored by an Archangel of Nebadon.]

제 82 편 결혼의 진화

⇨ 081

유랜시아 책

08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2 편 결혼의 진화

섹션

소개

제 1 장. 짝을 맺는 본능

제 2 장. 제한하는 금기

제 3 장. 초기의 결혼 사회관습

제 4 장. 재산 관례 아래에서의 결혼

제 5 장. 동족(同族) 결혼과 족외(族外) 결혼

제 6 장. 종족의 혼합

PAPER 82

THE EVOLUTION OF MARRIAG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ating Instinct

2. The Restrictive Taboos

3. Early Marriage Mores

4. Marriage under the Property Mores

5. Endogamy and Exogamy

6. Racial Mixtures

소개

결혼—짝짓기—은 남녀의 양성(兩性)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그러한 양성(兩性)에 맞추려는 사람의 반응적인 조절인 반면, 가정생활은 그러한 진화적이고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조절로부터 발생된 전체적인 결과이다.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 속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회적 진화의 기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실존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을 제공하였고, 가정은 길고도 험한 진화적 투쟁 전체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관습들은 모두 문화적 문명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인 반면, 가정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인이다. 어린아이는 기본적인 생활의 대부분을 자기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운다.

옛 시대의 인간들은 매우 풍부한 사회적 문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과거의 문명들 대부분이 다른 제도적 영향들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계속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오늘날 인간들은 풍부한 사회적 유산과 문화적 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 세

INTRODUCTION

82.0.1 (913.1) MARRIAGE — mating — grows out of bisexuality. Marriage is man's reactional adjustment to such bisexuality, while the family life is the sum total resulting from all such evolutionary and adaptative adjustments. Marriage is enduring; it is not inherent in biologic evolution, but it is the basis of all social evolution and is therefore certain of continued existence in some form. Marriage has given mankind the home, and the home is the crowning glory of the whole long and arduous evolutionary struggle.

82.0.2 (913.2) While religious,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ll essential to the survival of cultural civilization, *the family is the master civilizer*. A child learns most of the essentials of life from his family and the neighbors.

82.0.3 (913.3) The humans of olden times did not possess a very rich social civilization, but such as they had they faithfully and effectively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you should recognize that most of these civilizations of the past continued to evolve with a bare minimum of other institutional influences because the home was effectively functioning. Today the human races possess a rich social and cultural heritage, and it should be

대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wisely and effectively passed on to succeeding generations. The family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must be maintained.

제 1 장. 짝을 맺는 본능

1. THE MATING INSTINCT

남자들과 여자들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性)에 대한 욕망은 인류를 재생산하기 위하여 함께 합쳐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본능은 나중에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부부간의 충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들의 대부분을 인간들이 체험하게 되기 훨씬 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짝을 짓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그것의 진화적인 사회적 반향(反響)이다.

82.1.1 (913.4) Notwithstanding the personality gulf between men and women, the sex urge is sufficient to insure their coming together for the reproduction of the species. This instinct operated effectively long before humans experienced much of what was later called love, devotion, and marital loyalty. Mating is an innate propensity, and marriage is its evolutionary social repercussion.

성에 관한 흥미와 욕망은 원시 민족들에 있어서 지배적인 열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단순하게 여겼다. 모든 재생산하는 번식적인 체험은 상상을 일으키는 치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우 높게 문명화된 사람들의 모든 것을-흡수하는 성(性)에 관한 열정은, 주로 종족의 혼합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노-사람과 아담-사람에서의 연관을 이루려는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에 의하여, 진화적인 본성이 자극되어온 곳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 안드-사람 유전자간 진화적인 종족들에 의해서 너무나 제한된 분량만 흡수되었기 때문에, 동물적 열정에 대한 충분한 자아-통제를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더욱 예민한 성(性) 의식(意識)과 더욱 강력한 짝짓기 충동이라는 부여된-자질로써 재촉되고 자극되었다. 진화적인 종족들 중에서, 적색 인종이 가장 높은 성(性) 규범을 소유하였다.

82.1.2 (913.5) Sex interest and desire were not dominating passions in primitive peoples; they simply took them for granted. The entire reproductive experience was free from imaginative embellishment. The all-absorbing sex passion of the more highly civilized peoples is chiefly due to race mixtures, especially where the evolutionary nature has been stimulated by the associative imagination and beauty appreciation of the Nodites and Adamites. But this Andite inheritance was absorbed by the evolutionary races in such limited amounts as to fail to provide sufficient self-control for the animal passions thus quickened and aroused by the endowment of keener sex consciousness and stronger mating urges. Of the evolutionary races, the red man had the highest sex code.

결혼과 관련된 성(性)에서의 규정은 다음을 가리킨다:

82.1.3 (913.6) The regulation of sex in relation to marriage indicates:

1. 문명의 상대적인 진보. 문명은 유용한 통로로서 그리고 사회관례에 따라서 성(性)이 충족되기를 점점 더 요구한다.

82.1.4 (913.7) 1. The relative progress of civilization. Civilization has increasingly demanded that sex be gratified in useful channe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mores.

2. 각 민족 속에 있는 안드-사람 혈통의 분량. 성(性)은 그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물리적 및 정서적 자연본능 모두에서의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왔다.

82.1.5 (914.1) 2. The amount of Andite stock in any people. Among such groups sex has become expressive of both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 both the physical and emotional natures.

산직 종족들은 정상적인 동물적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되는 이성(異性)에 대한 아름다움과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깊이 감상하는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性) 매력이라 불리는 것은 지금-현재의 원시 종족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섞이지 않은 종족들은 한정적인 교미 본능은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통제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성적 이끌림은 느끼지 못한다.

82.1.6 (914.2) The Sangik races had normal animal passion, but they displayed little imagination or appreciation of the beau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e opposite sex. What is called sex appeal is virtually absent even in present-day primitive races; these unmixed peoples have a definite mating instinct but insufficient sex attraction to create serious problems requiring social control.

짝짓기 본능은 인간 존재들의 가장 유력한 육체적 추진력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을 개별 충족을 구실로, 의무로부터의 개인적인 해방과 개별적인 안락함보다도 훨씬 높은, 인종적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묘히 속이는 하나

82.1.7 (914.3) The mating instinct is one of the dominant physical driving forces of human beings; it is the one emotion which, in the guise of individual gratification, effectively tricks selfish man into putting race welfare and perpetuation high

의 감정이다.

하나의 관습으로서의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영속을 위한 생물학적 성향의 사회적 진화를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들의 영속은 이러한 인종적 교미 충동, 성적 끌어당김이라고 막연하게 불리는 충동의 현존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러한 심한 생물학적 충동은 모든 종류의 연관된 본능과 감정 그리고 관습—육체적, 지적, 사회적—을 향한 자극 중추가 된다.

야만인들에게 있어서는, 양식 공급이 추진하는 동기가 되었지만, 문명이 풍부한 양식을 보장하게 되자, 성(性) 충동이 자주 지배적인 충동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사회적인 규칙이 계속 성립되었다.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적인 주기가 교미 성향을 규제하지만,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자아-통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은 전혀 주기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개별존재들에게 자아-통제를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억제되지 않고 방임된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충동도 이러한 성적 충동의 힘보다 더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없다. 이러한 충동을 사회의 규정 아래에 이성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모든 문명의 실재성에 대한 최극의 시험이다. 자아-통제, 점점 더 자아-통제하는 것은, 발전하는 인류에게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비밀과 불성실 그리고 위선이 성적인 문제들을 감출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제공하지 못하며 윤리를 발전시키지도 못한다.

제 2 장. 제한하는 금기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적, 종교적, 국가적 제한들의 압력을 통한 성(性) 통제의 역사에 불과하다. 자연본능은 개별존재들을 거의 인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도덕을 알지 못한다; 오직 그리고 배타적으로 종족들의 번식에만 관심을 둔다. 자연본능은 강제로 번식을 계속하지만, 그 결과로 무관심하게 문제들을 남겨두어서 사회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며, 그렇게 조성된 것들은 진화하는 인류에게 항상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기본적인 본능과 진화하는 윤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을 발생시킨다.

초기의 종족들 가운데에서는, 이성(異性)끼리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성적인 자유 때문에, 매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피그미족들과 미개한 다른 집단들에게는 결혼 관습이 없으며; 이러한 민족들을 연구해 보면 단순히 짝을 짓는 관습이 원시적인 종족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언제든지 그들 고유 시대의 사회관례에 의한 도덕적 표준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판단되어야만 한다.

above individual ease and personal freedom from responsibility.

82:1.8 (914.4) As an institution, marriage, from its early beginnings down to modern times, pictures the social evolution of the biologic propensity for self-perpetuation. The perpetuation of the evolving human species is made certain by the presence of this racial mating impulse, an urge which is loosely called sex attraction. This great biologic urge becomes the impulse hub for all sorts of associated instincts, emotions, and usages —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social.

82:1.9 (914.5) With the savage, the food supply was the impelling motivation, but when civilization insures plentiful food, the sex urge many times becomes a dominant impulse and therefore ever stands in need of social regulation. In animals, instinctive periodicity checks the mating propensity, but since man is so largely a self-controlled being, sex desire is not altogether periodic; therefore does it become necessary for society to impose self-control upon the individual.

82:1.10 (914.6) No human emotion or impulse, when unbridled and overindulged, can produce so much harm and sorrow as this powerful sex urge. Intelligent submission of this impulse to the regulations of society is the supreme test of the actuality of any civilization. Self-control, more and more self-control, is the ever-increasing demand of advancing mankind. Secrecy, insincerity, and hypocrisy may obscure sex problems, but they do not provide solutions, nor do they advance ethics.

2. THE RESTRICTIVE TABOOS

82:2.1 (914.7) The story of the evolution of marriage is simply the history of sex control through the pressure of social, religious, and civil restrictions. Nature hardly recognizes individuals; it takes no cognizance of so-called morals; it is only and exclusively interested in the reproduction of the species. Nature compellingly insists on reproduction but indifferently leaves the consequential problems to be solved by society, thus creating an ever-present and major problem for evolutionary mankind. This social conflict consists in the unending war between basic instincts and evolving ethics.

82:2.2 (914.8) Among the early races there was little or no regulation of the relations of the sexes. Because of this sex license, no prostitution existed. Today, the Pygmies and other backward groups have no marriage institution; a study of these peoples reveals the simple mating customs followed by primitive races. But all ancient peoples should always be studied and judged in the light of the moral standards of the mores of their own times.

아무튼, 속박이 없는 사랑은 야만적인 상태의 정도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적인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결혼 관례와 부부간의 제약 조건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짝을 맺는 일은 수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서, 거의 완벽한 성(性) 허용의 상태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성(性)을 제약하는 20세기 표준으로 발전되었다.

부족이 형성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사회관례들과 제한적인 금기들이 매우 조잡한 상태였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이성(異性)간에 간격이 유지되었고, 이 간격은—정숙함과 질서와 산업을 장려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결혼과 가정의 진화가 시작되어 왔다. 의복, 장신구 그리고 종교적 관습에서의 성(性)의 차이에 따라 관습들은, 성(性) 해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이들 초기 금기에서 기원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결국에는 악덕, 범죄 그리고 죄의 개념들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축제, 특히 5월 축제에 모든 성적 규제들을 중지하는 것은 오랜 실천 관행이었다.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언제든지 더 많은 제한적 금기들의 지배를 받아왔다. 초기의 사회관례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게는 남자들과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적 해방을 허용하였지만, 아내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남편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남자의 성적 자유는 별로 축소시키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성적 자유에 대한 더 많은 금기들이 적용되었다. 결혼한 여인들은 별도의 집단인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그 표시로는 머리 모양, 의복, 면사포, 격리 표시, 장식품, 반지 등이 있었다.

제 3 장. 초기의 결혼 사회관습

결혼은, 사람에게 번식—자아—증식 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항상 존재하는 생물학적 긴장 상태에 대한 사회 조직체의 제도적 반응이다. 짝을 짓는 일은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회가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하게 진화됨에 따라, 짝을 맺는 사회관례도 유사하게 진화해 가는데, 그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이다. 사회적 진화가 사회관례들이 형성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만 하면, 결혼이 하나의 진화하는 제도로서 성립되게 된다.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되겠지만,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있는데: 사회관례, 짝을 맺는 데 있어서의 외부적인 측면들을 규제하는 법칙들과,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다른 관계들이다. 사회에 의해서 강요되는 성적 규제에 대하여 개별존재는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오랜 세월 동안의 성적 문제의 원인인데; 자아-유지는 개별적인 반면 집단에 의해서 경영되고; 자아-영속은 사회적인 반면 개별적 충동에 의해서 보장된다.

82:2.3 (915.1) Free love, however, has never been in good standing above the scale of rank savagery. The moment societal groups began to form, marriage codes and marital restrictions began to develop. Mating has thus progressed through a multitude of transitions from a state of almost complete sex license to the twentieth-century standards of relatively complete sex restriction.

82:2.4 (915.2) In the earliest stages of tribal development the mores and restrictive taboos were very crude, but they did keep the sexes apart — this favored quiet, order, and industry — and the long evolution of marriage and the home had begun. The sex customs of dress, adornment, and religious practices had their origin in these early taboos which defined the range of sex liberties and thus eventually created concepts of vice, crime, and sin. But it was long the practice to suspend all sex regulations on high festival days, especially May Day.

82:2.5 (915.3) Women have always been subject to more restrictive taboos than men. The early mores granted the same degree of sex liberty to unmarried women as to men, but it has always been required of wives that they be faithful to their husbands. Primitive marriage did not much curtail man's sex liberties, but it did render further sex license taboo to the wife. Married women have always borne some mark which set them apart as a class by themselves, such as hairdress, clothing, veil, seclusion, ornamentation, and rings.

3. EARLY MARRIAGE MORES

82:3.1 (915.4) Marriage is the institutional response of the social organism to the ever-present biologic tension of man's unremitting urge to reproduction — self-propagation. Mating is universally natural, and as society evolved from the simple to the complex, there was a corresponding evolution of the mating mores, the genesis of the marital institution. Wherever social evolution has progressed to the stage at which mores are generated, marriage will be found as an evolving institution.

82:3.2 (915.5) There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two distinct realms of marriage: the mores, the laws regulating the external aspects of mating, and the otherwise secret and personal relations of men and women. Always has the individual been rebellious against the sex regulations imposed by society; and this is the reason for this agelong sex problem: Self-maintenance is individual but is carried on by the group; self-perpetuation is social but is secured by individual impulse.

사회관례는,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는, 모든 종족들 속에서 보였듯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결혼의 기준은 항상 현재 통용되는 사회관례의 힘과 시민 정부의 기능적 고결한-순수성에 대한 참된 척도이다. 그러나 성(性)과 짝을 맺는 것에 대한 초기의 사회관례는 매우 변화가 심하고 조잡한 규정이었다. 부모, 자녀, 친척, 그리고 사회 전체가 결혼 규정에 있어서 모순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찬양하고 실천해 온 그 종족들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진화되었고 증가된 숫자를 통하여 살아남았다.

원시 시대에 있어서 결혼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대가였으며; 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성에 대한 상징이었다. 야만인들은 자신의 결혼식 날을 성인으로 입문하고 책무를 갖게 되는 기점으로 여겼다. 어떤 시대에는 결혼이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로 간주되었고, 다른 어떤 시대에는 종교적인 책무로 간주되었다; 또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초기의 많은 부족들은 물건을 훔치는 재주가 있어야 결혼할 분별된-자격을 주었다; 후대의 민족들은 그러한 급습하여 약탈하는 행위 대신에 운동 시험과 경쟁적인 경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경쟁에서의 승자에게는 최고의 상—가장 뛰어난 신부를 선택—이 주어졌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들 중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두개골을 가진 경우에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두개골을 살 수도 있었다. 구매를 통하여 아내를 얻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수수께끼 풀기 시험을 통해 아내를 얻었는데, 그러한 관습은 여러 집단의 흑인들 속에서 아직도 실천되고 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어떤 부족들은 남자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엄격한 결혼 시험을 여인들에게 맡겼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 시험에는 사냥 기술과 격투 그리고 가족을 위해 부양 능력 등이 포용되었다. 신랑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신부의 가정에 들어가 살아야만 하였으며, 그곳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기에 적당한지를 증명해야만 하였다.

아내의 분별된-자격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들에게는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한 양의 농사일을 마치도록 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민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치욕적인 것으로 또 심지어는 죄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의 기원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고 빨리 할수록 더 낫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 나이의 결혼을 촉진시켰는데, 심지어는 태어날 때 이루어

82:3.3 (915.6) The mores, when respected, have ample power to restrain and control the sex urge, as has been shown among all races. Marriage standards have always been a true indicator of the current power of the mores and the functional integrity of the civil government. But the early sex and mating mores were a mass of inconsistent and crude regulations. Parents, children, relatives, and society all had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marriage regulations. But in spite of all this, those races which exalted and practiced marriage naturally evolved to higher levels and survived in increased numbers.

82:3.4 (915.7) In primitive times marriage was the price of social standing; the possession of a wife was a badge of distinction. The savage looked upon his wedding day as marking his entrance upon responsibility and manhood. In one age, marriage has been looked upon as a social duty; in another, as a religious obligation; and in still another, as a political requirement to provide citizens for the state.

82:3.5 (916.1) Many early tribes required feats of stealing as a qualification for marriage; later peoples substituted for such raiding forays, athletic contests and competitive games. The winners in these contests were awarded the first prize — choice of the season's brides. Among the head-hunters a youth might not marry until he possessed at least one head, although such skulls were sometimes purchasable. As the buying of wives declined, they were won by riddle contests, a practice that still survives among many groups of the black man.

82:3.6 (916.2) With advancing civilization, certain tribes put the severe marriage tests of male endurance in the hands of the women; they thus were able to favor the men of their choice. These marriage tests embraced skill in hunting, fighting, and ability to provide for a family. The groom was long required to enter the bride's family for at least one year, there to live and labor and prove that he was worthy of the wife he sought.

82:3.7 (916.3) The qualifications of a wife were the ability to perform hard work and to bear children. She was required to execute a certain piece of agricultural work within a given time. And if she had borne a child before marriage, she was all the more valuable; her fertility was thus assured.

82:3.8 (916.4) The fact that ancient peoples regarded it as a disgrace, or even a sin, not to be married, explains the origin of child marriages; since one must be married, the earlier the better. It was also a general belief that unmarried persons could not enter spiritland, and this was a further incentive to child marriages even at birth and sometimes before birth, contingent upon sex. The ancients

졌고 어떤 때에는 이성(異性)의 조건으로 출생 이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기원적 중매쟁이들은 죽은 개별존재들을 위해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람들이었다. 죽은 아들의 부모가 그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이 결혼하도록 이러한 중매인을 정하였다.

후대의 민족들 사이에서는 사춘기가 일반적인 결혼 연령으로 여겨졌지만, 문명 진보에 직접 비례하여 발전되었다. 사회 진화의 초기에 있어서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에게 독특한 독신자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소 부족한 개별존재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많은 부족들은, 신부를 그 남편에게 내어주기 직전에, 통치 집단의 회원들이 신부와 성적 관계를 갖도록 허용하였다. 이 사람들 각자는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시초가 되었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젊은 여자가 자기 결혼 지참금을 별도로 요구되었는데, 그 지참금은 신부가 자기 접대실에서 제공하는 성(性) 봉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물들로 이루어졌다.

어떤 부족들은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과부들 또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였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만일 둘 모두 어린 사람들이 짝을 맺도록 허락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어떤 부족들은 비슷한 나이의 집단들끼리 짝을 맺도록 제한하였다. 특정한 연령 집단들에게 결혼을 제한시킨 것 때문에 근친상간의 관념이 처음으로 생겼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떤 사회관례에서는 과부신분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과부들을 죽이거나 남편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은 과부는 반드시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어떤 부족들은 산채로 그들을 태우기도 하였다. 과부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비난과 참을 수 없는 사회적 규제를 감수해야 하였는데 재혼하는 것이 대개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많은 실천 관행들이 옛날에는 오히려 장려되었다. 원시시대의 아내들은, 다른 여인과 함께하는 그들 남편의 관련자들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 소녀들의 순결은 결혼에 큰 장애 요인이었다; 소녀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그 남자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동행자를 얻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원시적 부족들은 그 여인이 임신을 할 때까지 시험적인 결혼을 허용하였고, 그 후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어떤 집단들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녀의 부모가

believed that even the dead must be married. The original matchmakers were employed to negotiate marriages for deceased individuals. One parent would arrange for these intermediaries to effect the marriage of a dead son with a dead daughter of another family.

82:3.9 (916.5) Among later peoples, puberty was the common age of marriage, but this has advanced in direct proportion to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Early in social evolution peculiar and celibate orders of both men and women arose; they were started and maintained by individuals more or less lacking normal sex urge.

82:3.10 (916.6) Many tribes allowed members of the ruling group to have sex relations with the bride just before she was to be given to her husband. Each of these men would give the girl a present, and this was the origin of the custom of giving wedding presents. Among some groups it was expected that a young woman would earn her dowry, which consisted of the presents received in reward for her sex service in the bride's exhibition hall.

82:3.11 (916.7) Some tribes married the young men to the widows and older women and then, when they were subsequently left widowers, would allow them to marry the young girls, thus insuring, as they expressed it, that both parents would not be fools, as they conceived would be the case if two youths were allowed to mate. Other tribes limited mating to similar age groups. It was the limitation of marriage to certain age groups that first gave origin to ideas of incest. (In India there are even now no age restrictions on marriage.)

82:3.12 (916.8) Under certain mores widowhood was greatly to be feared, widows being either killed or allowed to commit suicide on their husbands' graves, for they were supposed to go over into spiritland with their spouses. The surviving widow was almost invariably blamed for her husband's death. Some tribes burned them alive. If a widow continued to live, her life was one of continuous mourning and unbearable social restriction since remarriage was generally disapproved.

82:3.13 (917.1) In olden days many practices now regarded as immoral were encouraged. Primitive wives not infrequently took great pride in their husbands' affairs with other women. Chastity in girls was a great hindrance to marriage; the bearing of a child before marriage greatly increased a girl's desirability as a wife since the man was sure of having a fertile companion.

82:3.14 (917.2) Many primitive tribes sanctioned trial marriage until the woman became pregnant, when the regular marriage ceremony would be performed; among other groups the wedding was not celebrated until the first child was born. If a

도로 데려갔고, 그 결혼은 취소되었다. 사회관례는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원시적인 시험적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 방종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생식력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시험했다. 계약하는 개별존재들은 출산 능력이 인정되자마자 영구적으로 결혼했다. 현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손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할 때, 만일 그 부부가 자기들의 결혼 생활에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안에서 시험적인 결혼이 시작된 상태이며 그러한 것은 그들보다 덜 문명화된 조상들의 정직한 모험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제 4 장. 재산 관례 아래에서의 결혼

결혼은 언제나 재산과 종교 둘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종교는 도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시적인 결혼은 일종의 투자, 경제적인 투기 행위였으며;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사업적인 문제와 더 많이 관련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집단의 이점(利點)과 복지를 위하여 결혼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그 집단, 그들의 부모들과 연장자(年長者)들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재산 사회관례는 사회적 관습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는 일에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많은 현대인들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된다.

문명이 발달되고 사유 재산이 사회관례 속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되었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그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의 법전과 사회관례에서는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공인된 성(性) 관계들은 이러한 선재(先在)된 재산권으로부터 조성되었다. 구약 성서는 여인들을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란은 여인들이 열등한 것으로 가르친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러한 관습은 어떤 민족들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현대의 성(性) 질투심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관례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지 않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남편보다 더 엄격한 성(性) 중요성이 아내에게 부과된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녀의 간통 행위가 혈통과 유전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문명이 시작된 매우 초기에는 사생아를 낳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 처음에는 여자들만이 간음에 대해 처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회관례에 따라서 그 상대자에

wife was barren, she had to be redeemed by her parents, and the marriage was annulled. The mores demanded that every pair have children.

^{82:3.15 (917.3)} These primitive trial marriages were entirely free from all semblance of license; they were simply sincere tests of fecundity. The contracting individuals married permanently just as soon as fertility was established. When modern couples marry with the thought of convenient divorce in the background of their minds if they are not wholly pleased with their married life, they are in reality entering upon a form of trial marriage and one that is far beneath the status of the honest adventures of their less civilized ancestors.

4. MARRIAGE UNDER THE PROPERTY

MORES

^{82:4.1 (917.4)} Marriage has always been closely linked with both property and religion. Property has been the stabilizer of marriage; religion, the moralizer.

^{82:4.2 (917.5)} Primitive marriage was an investment, an economic speculation; it was more a matter of business than an affair of flirtation. The ancients married for the advantage and welfare of the group; wherefore their marriages were planned and arranged by the group, their parents and elders. And that the property mores were effective in stabilizing the marriage institution is borne out by the fact that marriage was more permanent among the early tribes than it is among many modern peoples.

^{82:4.3 (917.6)} As civilization advanced and private property gained further recognition in the mores, stealing became the great crime. Adultery was recognized as a form of stealing, an infringement of the husband's property rights; it is not therefore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earlier codes and mores. Woman started out as the property of her father, who transferred his title to her husband, and all legalized sex relations grew out of these pre-existent property rights. The Old Testament deals with women as a form of property; the Koran teaches their inferiority. Man had the right to lend his wife to a friend or guest, and this custom still obtains among certain peoples.

^{82:4.4 (917.7)} Modern sex jealousy is not innate; it is a product of the evolving mores. Primitive man was not jealous of his wife; he was just guarding his property. The reason for holding the wife to stricter sex account than the husband was because her marital infidelity involved descent and inheritance. Very early in the march of civilization the illegitimate child fell into disrepute. At first only the woman was punished for adultery; later on, the mores also decreed the chastisement of her

제도 징벌이 내려졌으며, 손해를 입은 남편이나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오랜 세월 동안 주어져 왔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회관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명예훼손죄를 허용하고 있다.

순결을 지키게 하는 금기가 재산 사회관례의 한 현상으로 기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들에게 적용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구혼자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하였는데, 처녀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의 상업적인 자산—더 값이 나가는—이었다. 순결이 더 많이 요구되게 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부 값을 남편-되려는-사람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 되었다. 여자의 순결에 대한 이 관념이 일단 시작되어 종족 전체에 퍼지게 되자, 소녀들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실제로 가두어두는, 여러 해 동안 말 그대로 감금시키는 실천 관행이 되었다. 그리하여 보다 최근의 규범과 처녀성 시험에 의해서 전문적인 매춘 계급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부들이었는데, 신랑의 어머니에 의해서 처녀가 아니었음이 발견된 여자들이었다.

partner, and for long ages the offended husband or the protector father had the full right to kill the male trespasser. Modern peoples retain these mores, which allow so-called crimes of honor under the unwritten law.

82.4.5 (917.8) Since the chastity taboo had its origin as a phase of the property mores, it applied at first to married women but not to unmarried girls. In later years, chastity was more demanded by the father than by the suitor; a virgin was a commercial asset to the father — she brought a higher price. As chastity came more into demand, it was the practice to pay the father a bride fee in recognition of the service of properly rearing a chaste bride for the husband-to-be. When once started, this idea of female chastity took such hold on the races that it became the practice literally to cage up girls, actually to imprison them for years, in order to assure their virginity. And so the more recent standards and virginity tests automatically gave origin to the professional prostitute classes; they were the rejected brides, those women who were found by the grooms' mothers not to be virgins.

제 5 장. 동족(同族) 결혼과 족외(族外) 결혼

매우 초기의 야만인들은 종족이 혼합됨으로써 자손들의 본질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근친결혼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부족과의 결혼이 항상 비교적 더 나았으며, 그리하여 사회관례는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성 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부족과의 결혼이 진화적 변동과 진보를 위한 선택적인 기회를 훨씬 더 증대시켰다. 다른 부족과 결혼한 개별존재들은 더욱 재능이 많았고 불리한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훨씬 컸다; 근친결혼은 그들의 사회관례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갔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된 것이었다; 야만인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식 속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의 진보된 민족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았으며, 또한 그들은 과도한 근친결혼의 결과에 의해서 때로는 전반적인 허약성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수한 혈통의 근친결혼은 때로 강력한 부족들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유전적인 결함이라는 근친결혼의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진보적인 사회관례는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모든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를 점점 더 많이 구체화시켰다.

종교는 오랫동안 외부-결혼에 반대하는 효력 있는 장애요인이 되어 왔는데; 많은 종교들은 신앙이 외부와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친다. 여자들은 대개 내부-결혼 실천 관행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외부-결혼을 선호한다. 재산이 항상 결혼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씨족에게 소속된 재산을 보

5. ENDOGAMY AND EXOGAMY

82.5.1 (918.1) Very early the savage observed that race mixture improved the quality of the offspring. It was not that inbreeding was always bad, but that outbreeding was always comparatively better; therefore the mores tended to crystallize in restriction of sex relations among near relatives. It was recognized that outbreeding greatly increased the selective opportunity for evolutionary variation and advancement. The outbred individuals were more versatile and had greater ability to survive in a hostile world; the inbreeders, together with their mores, gradually disappeared. This was all a slow development; the savage did not consciously reason about such problems. But the later and advancing peoples did, and they also made the observation that general weakness sometimes resulted from excessive inbreeding.

82.5.2 (918.2) While the inbreeding of good stock sometimes resulted in the upbuilding of strong tribes, the spectacular cases of the bad results of the inbreeding of hereditary defectives more forcibly impressed the mind of man, with the result that the advancing mores increasingly formulated taboos against all marriages among near relatives.

82.5.3 (918.3) Religion has long been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outmarriage; many religious teachings have proscribed marriage outside the faith. Woman has usually favored the practice of in-marriage; man, outmarriage. Property has always influenced marriage, and sometimes, in an

호하려는 노력으로 자기 아버지 부족들 속에서 남편을 찾도록 여인들에게 강요하는 사회관례도 종종 생겨났다. 이러한 종류의 규칙들로 인하여,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내부-짝짓기는 기술을 비법으로 간직하려는 노력에서 실천되기도 하였다; 숙련된 기능인들은 자기 기술을 가족들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우월한 집단들은, 고립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동족끼리 짝을 맺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낫-사람들은 150,000년 이상 동안 거대한 내부-결혼 집단들 중의 하나였다. 후대의 내부-결혼 사회관례는 주로 보라색 인종의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반드시 남매들끼리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매들끼리의 결혼은 초기의 이집트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드-사람들이 한 때 점령하였던 지역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왕족의 피를 순결하게 지키려는 노력에서 남매끼리의 결혼을 오랫동안 실천하였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들 사이에서는, 사촌들끼리의 결혼이 의무적이었다; 사촌들에게는 사촌들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의 자매와 닮은 여자와 결혼하였지만, 그러한 연합은 유대인들의 후대 사회관례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남매간의 결혼이 처음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회관례 밑에서 자매-아내가 다른 아내 또는 아내들 위에 거드름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사회관례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살아남은 형제로 하여금 죽은 형제를 위해 아이를 낳아 주도록 요구하였다. 어떤 등급의 내부-결혼도 전혀 반대할 만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규제는 전적으로 금기의 문제이다.

마침내 외부-결혼이 보편화되었는데, 그것은 남자들이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밖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척들로부터 덜 속박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가까운 관계는 배척되고 개별적 선택의 요소가 짝을 맺는 주요 요인이 되어, 상대방을 부족 밖에서 선택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많은 부족들은 마침내 씨족 내의 결혼을 금지하였고; 또 어떤 부족들은 특정한 특권계급과 짝을 맺는 일을 제한시켰다. 자기 토tem과 같은 토tem을 가진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 때문에 이웃 부족으로부터 여인들을 훔쳐오는 관습이 촉진되었다. 나중에는, 친족관계보다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규제되었다. 현대적 외부-결혼 실천 관행에 들어오기까지, 내부-결혼의 진화 안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내부-결혼에 대한 금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된 후에도, 우두머리들이나 왕들의 경우에는 왕족의 혈통을 모으고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도록 허용되었다. 사회관례는 대개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effort to conserve property within a clan, mores have arisen compelling women to choose husbands within their fathers' tribes. Rulings of this sort led to a great multiplication of cousin marriages. In-mating was also practiced in an effort to preserve craft secrets; skilled workmen sought to keep the knowledge of their craft within the family.

82:5.4 (918.4) Superior groups, when isolated, always reverted to consanguineous mating. The Nodites for over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years were one of the great in-marriage groups. The later-day in-marriage mores were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s of the violet race, in which, at first, matings were, perforce, between brother and sister. And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were common in early Egypt, Syria, Mesopotamia, and throughout the lands once occupied by the Andites. The Egyptians long practiced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in an effort to keep the royal blood pure, a custom which persisted even longer in Persia. Among the Mesopotamians, before the days of Abraham, cousin marriages were obligatory; cousins had prior marriage rights to cousins. Abraham himself married his half sister, but such unions were not allowed under the later mores of the Jews.

82:5.5 (919.1) The first move away from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came about under the plural-wife mores because the sister-wife would arrogantly dominate the other wife or wives. Some tribal mores forbade marriage to a dead brother's widow but required the living brother to beget children for his departed brother. There is no biologic instinct against any degree of in-marriage; such restrictions are wholly a matter of taboo.

82:5.6 (919.2) Outmarriage finally dominated because it was favored by the man; to get a wife from the outside insured greater freedom from in-laws. Familiarity breeds contempt; so, as the element of individual choice began to dominate mating, it became the custom to choose partners from outside the tribe.

82:5.7 (919.3) Many tribes finally forbade marriages within the clan; others limited mating to certain castes. The taboo against marriage with a woman of one's own totem gave impetus to the custom of stealing women from neighboring tribes. Later on, marriages were regulated more in accordance with territorial residence than with kinship. There were many steps in the evolution of in-marriage into the modern practice of outmarriage. Even after the taboo rested upon in-marriages for the common people, chiefs and kings were permitted to marry those of close kin in order to keep the royal blood concentrated and pure. The mores have usually permitted sovereign rulers certain licenses in sex matters.

82:5.8 (919.4)

후대의 안드-사람들이 현존함으로써 산지 종족들은 자기 부족 밖에서 짝을 찾으려는 욕구가 무척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집단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외부-결혼이 일반화 될 수 없었다.

외부-결혼 자체는 평화 촉진자이었으며, 결혼이 이루어진 부족들 사이에서는 적대감이 줄어들었다. 외부-결혼은 부족의 조화-협동과 군사 동맹을 유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강대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를 세운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부-결혼은 거래를 위해 접촉을 이루는 경우가 증대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았다; 모험과 탐험은 짝을 맺는 범위를 넓히는 일에 공헌하였고, 인종적인 문화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종족의 결혼에 대한 사회관례의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모순점들은, 아내를 훔쳐오는 일과 다른 부족들로부터 구매하는 일과 함께 이러한 외부-결혼의 관습이 그 원인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부족의 사회관례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다. 내부-결혼에 관한 이러한 금기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었다는 사실은, 친족관계 간의 결혼에 대한 금기에 의해 잘 설명되는데, 그것은 여러 단계의 인척 관계와 조금도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용하고 있었다.

제 6 장. 종족의 혼합

오늘날의 세계에는 순수한 종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의 기원적인 진화적 유색 인종들 중에서는 오직 두 가지 대표적인 인종들만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황색 인종과 흑색 인종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 종족들도 사라진 유색 인종들과 많이 혼합되었다. 소위 백색 인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고대의 청색 인종의 자손이지만, 아메리카의 적색 인종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종족들과 어느 정도 혼합되었다.

6가지 색깔의 산지 종족들 중에서, 3가지는 1차적이고 다른 3가지는 2차적이다. 비록 1차 인종들—청색, 적색, 황색—이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인종들보다 우월할 지라도, 만일 그들의 더 좋은 혈통들이 흡수될 수만 있었다면 1차 인종들을 상당히 발전시켰을 바람직한 많은 특색들이 2차 인종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半)-특권계급”, “혼혈”, “튀기”를 싫어하는 지금-현재의 편견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인종들 중의 크게 열등한 혈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인종적 잡종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또한 같은 종족의 상호결혼의 경우에 불만족스럽게 퇴보된 후손을 얻고 있다.

만일에 지금-현재의 유란시아의 종족들이 그

82:5.8 (919.4) The presence of the later Andite peoples had much to do with increasing the desire of the Sangik races to mate outside their own tribes. But it was not possible for out-mating to become prevalent until neighboring groups had learned to live together in relative peace.

82:5.9 (919.5) Outmarriage itself was a peace promoter; marriages between the tribes lessened hostilities. Outmarriage led to tribal co-ordination and to military alliances; it became dominant because it provided increased strength; it was a nation builder. Outmarriage was also greatly favored by increasing trade contacts; adventure and exploration contributed to the extension of the mating bounds and greatly facilitated the cross-fertilization of racial cultures.

82:5.10 (919.6) The otherwise inexplicable inconsistencies of the racial marriage mores are largely due to this outmarriage custom with its accompanying wife stealing and buying from foreign tribes, all of which resulted in a compounding of the separate tribal mores. That these taboos respecting in-marriage were sociologic, not biologic, is well illustrated by the taboos on kinship marriages, which embraced many degrees of in-law relationships, cases representing no blood relation whatsoever.

6. RACIAL MIXTURES

82:6.1 (919.7) There are no pure races in the world today. The early and original evolutionary peoples of color have only two representative races persisting in the world, the yellow man and the black man; and even these two races are much admixed with the extinct colored peoples. While the so-called white race is predominantly descended from the ancient blue man, it is admixed more or less with all other races much as is the red man of the Americas.

82:6.2 (919.8) Of the six colored Sangik races, three were primary and three were secondary. Though the primary races — blue, red, and yellow — were in many respects superior to the three secondary peopl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se secondary races had many desirable traits which would have considerably enhanced the primary peoples if their better strains could have been absorbed.

82:6.3 (920.1) Present-day prejudice against “half-castes,” “hybrids,” and “mongrels” arises because modern racial crossbreeding is, for the greater part, between the grossly inferior strains of the races concerned. You also get unsatisfactory offspring when the degenerate strains of the same race intermarry.

82:6.4 (920.2) If the present-day races of Urantia could be freed from the curse of their lowest strata

들의 타락하고, 반(反)사회적이며, 미약한-마음을 지닌, 그리고 버림받은 그러한 가장 낮은 층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종족 혼혈에 거의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종족의 혼합이 몇몇 종족들의 최고 유형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여전히 제시될 수 있는 반대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우월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들의 교배는, 새롭고도 더욱 강건한 혈통이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종족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이다. 잡종을 통하여 힘이 증강되고 번식력이 증가된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의 현재 주민들 속에서 보이고 있듯이, 다양한 민족들의 평균적인 또는 우월한 계층들의 인종적 혼합이 창조적인 잠재를 크게 증가시킨다. 그러한 짝을 맺는 일이 보다 낮은 또는 열등한 계층들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지금-현재 남부 인도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 보이는 것처럼, 창조력이 줄어든다.

종족 혼성은 새로운 특징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만일 그러한 잡종이 우월한 혈통들의 연합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이 특징들 역시 우월한 특색을 가질 것이다.

지금-현재의 인종들이 열등하고 퇴화된 혈통들로 너무 넘치고 있는 한, 대규모로 벌어지는 종족 뒤섞임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험에 대한 반대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에 들어있다. 심지어는 열등한 종족들 중에서도 잡종이 종종 그들의 선조들보다 개선된다. 잡종이 종자의 개량을 가져오는 것은 우성 유전자들의 역할 때문이다. 인종적 혼합은 잡종 안에서 나타날 바람직한 우성 존재의 숫자를 증대시킨다.

유란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인종적 잡종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발생되었다. 인간 혈통들이 섞인 결과에 의한 심각한 부조화의 위험이 너무 과장되어 왔다. “혼혈아”에 대한 주된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에서 기인된다.

백색 인종과 폴리네시아 인종을 섞는 핏케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색 인종 남자와 폴리네시아인 여인들은 매우 좋은 인종적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한 유형의 백색과 적색 그리고 황색 인종들 사이의 혼혈은 생물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새로운 많은 특징들을 즉각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인종들은 1차 산기 종족에 속한다. 백색 인종과 흑색 인종의 혼합은 당대의 결과로 볼 때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1대 혼혈 자손이 너무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이 그러한 자손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백색-흑색 혼혈아가, 다른 면들에서는 약간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인간성에서의 탁월한 표본이다.

of deteriorated, antisocial, feeble-minded, and outcast specimens, there would be little objection to a limited race amalgamation. And if such racial mixtures could take place between the highest types of the several races, still less objection could be offered.

82:6.5 (920.3) Hybridization of superior and dissimilar stocks is the secret of the creation of new and more vigorous strains. And this is true of plants, animals, and the human species. Hybridization augments vigor and increases fertility. Race mixtures of the average or superior strata of various peoples greatly increase *creative* potential, as is shown in the present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North America. When such matings take place between the lower or inferior strata, creativity is diminished, as is shown by the present-day peoples of southern India.

82:6.6 (920.4) Race blending greatly contributes to the sudden appearance of *new* characteristics, and if such hybridization is the union of superior strains, then these new characteristics will also be *superior* traits.

82:6.7 (920.5) As long as present-day races are so overloaded with inferior and degenerate strains, race intermingling on a large scale would be most detrimental, but most of the objections to such experiments rest on social and cultural prejudices rather than on biological considerations. Even among inferior stocks, hybrids often are an improvement on their ancestors. Hybridization makes for species improvement because of the role of the *dominant genes*. Racial intermixtur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 larger number of the desirable *dominants* being present in the hybrid.

82:6.8 (920.6) For the past hundred years more racial hybridization has been taking place on Urantia than has occurred in thousands of years. The danger of gross disharmonies as a result of crossbreeding of human stocks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The chief troubles of “half-breeds” are due to social prejudices.

82:6.9 (920.7) The Pitcairn experiment of blending the white and Polynesian races turned out fairly well because the white men and the Polynesian women were of fairly good racial strains. Interbreeding between the highest types of the white, red, and yellow races would immediately bring into existence many new and biologically effective characteristics. These three peoples belong to the primary Sangik races. Mixtures of the white and black races are not so desirable in their immediate results, neither are such mulatto offspring so objectionable as social and racial prejudice would seek to make them appear. Physically, such white-black hybrids are excellent specimens of humanity, notwithstanding their slight inferiority in some other respects.

1차 산기 종족이 2차 산기 종족과 혼합되었을 때, 전자(前者)의 희생에 의해 후자(後者)는 상당히 개선된다. 그리고 소규모—오랜 기간에 걸친—로 이루어진다면, 2차 집단들의 향상을 위하여 1차 인종들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한다면, 2차 산기들은 1차 인종들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기도 하다.

결국, 인간 종족들의 실제적인 위험은, 다양한 문명화된 인종들의 인종적인 혼혈에 대해 추정되는 위험에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열등하고 퇴보된 혈통들의 무제한적인 번식에 기초된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82:6.10 (920.8) When a primary Sangik race amalgamates with a secondary Sangik race, the latter is considerably improved at the expense of the former. And on a small scale — extending over long periods of time — there can be little serious objection to such a sacrificial contribution by the primary races to the betterment of the secondary groups. Biologically considered, the secondary Sangiks were in some respects superior to the primary races.

82:6.11 (921.1) After all, the real jeopardy of the human species is to be found in the unrestrained multiplication of the inferior and degenerate strains of the various civilized peoples rather than in any supposed danger of their racial interbreeding.

82:6.12 (921.2)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 83 편 결혼 제도

⇨ 082

유랜시아 책

08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3 편 결혼 제도

색션

소개

- 제 1 장.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 제 2 장. 구혼(求婚)과 약혼
- 제 3 장. 아내 사들이기와 결혼 지참금
- 제 4 장. 결혼 예식
- 제 5 장. 복수(複數)의 결혼
- 제 6 장.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 제 7 장. 혼인의 해체
- 제 8 장. 결혼의 이상화(理想化)

PAPER 83

THE MARRIAGE INSTITUTION

SECTIONS

Introduction

- 1. Marriage as a Societal Institution
- 2. Courtship and Betrothal
- 3. Purchase and Dowry
- 4. The Wedding Ceremony
- 5. Plural Marriages
- 6. True Monogamy — Pair Marriage
- 7. The Dissolution of Wedlock
- 8. The Idealization of Marriage

소개

이것은 결혼 제도의 초기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무리 속에서 이루어진 느슨하고 불규칙적인 짝 짓기에서부터, 많은 변화와 적응의 단계들을 거쳐, 결국에는 한 쌍의 짝이 맺어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가장 높은 사회 계층인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정점에 달하게 되었던, 결혼 기준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보해 왔다.

결혼은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며, 결혼에 관한 사회관례가 지속된 것은 주로 재산과 종교 때문이었지만, 결혼과 그 결과에 의한 가족을 언제까지나 유지시키는 실제적인 영향은, 그들이 가장 원시적인 야만인이든지 또는 가장 문명화된 펠사자이든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상대방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단순하면서도 타고난 생물학적 사실이였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물보다 나은 어떤 것을 만들도록 유도한 것은 성(性) 충동이였다. 자아를-존중하고 자아를-충족시키는 성적 관계는 자아-부정이라는 일정한 귀결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타적 의무들과 종족에-이익을 주는 수많은 가정적(家庭的) 책임을 맡긴

INTRODUCTION

83:0.1 (922.1) THIS is the recital of the early beginnings of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t has progressed steadily from the loose and promiscuous matings of the herd through many variations and adaptations, even to the appearance of those marriage standards which eventually culminated in the realization of pair mating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to establish a home of the highest social order.

83:0.2 (922.2) Marriage has been many times in jeopardy, and the marriage mores have drawn heavily on both property and religion for support; but the real influence which forever safeguards marriage and the resultant family is the simple and innate biologic fact that men and women positively will not live without each other, be they the most primitive savages or the most cultured mortals.

83:0.3 (922.3) It is because of the sex urge that selfish man is lured into making something better than an animal out of himself. The self-regarding and self-gratifying sex relationship entails the certain consequences of self-denial and insures the assumption of altruistic duties and numerous

다. 여기에서 성(性)은 야만인에서의 인지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은 문명자가 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성적 충동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김없이 사람을 생각하도록 몰아붙이고 결국에는 사랑하도록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race-benefiting home responsibilities. Herein has sex been the unrecognized and unsuspected civilizer of the savage; for this same sex impulse automatically and unerringly *compels man to think* and eventually *leads him to love*.

제 1 장.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결혼은, 양성(兩性)이라는 육체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인간적 관계들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적 기능구조이다. 그러한 제도로서의 결혼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기능 한다:

1. 개인적인 성적 관계들에 대한 규제로.

2. 혈통, 유전, 상속,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대한 규제로, 이것은 더 오래된 것이고 근본적인 기능임.

결혼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 그 자체는 재산 사회관례와 함께 결혼 제도를 안정시킨 요소이다. 결혼을 안정시킨 다른 유력한 요소들은 자부심, 허영심, 기사도(騎士道), 의무,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등이 있다. 그러나 결혼이 높은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가족은 명백하게 인간적인 제도, 진화적인 발전의 결과이다. 결혼은 사회의 제도이며, 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종교가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타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시 결혼은 기본적으로 산업적 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서도 종종 사회적 또는 사업적 관련사이다. 안드-사람 혈통의 영향을 통하여 그리고 향상하는 문명에서의 사회관례의 결과로, 결혼은 서서히 상호간의, 낭만적, 온정적, 시적(詩的), 애정적, 윤리적 그리고 나아가 이상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선택과 소위 말하는 낭만적 사랑은 원시 짝짓기에서는 극히 적었다. 초기 시대 동안에 남편과 아내는 그리 많이 같이 있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먹는 것조차도 그리 자주 없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애정은 성(性) 인력과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같이 살고 일하기 위해 서로를 좋아하였다

1. MARRIAGE AS A SOCIETAL INSTITUTION

83:1.1 (922.4) Marriage is society's mechanism designed to regulate and control those many human relations which arise out of the physical fact of bisexuality. As such an institution, marriage functions in two directions:

83:1.2 (922.5) 1. In the regulation of personal sex relations.

83:1.3 (922.6) 2. In the regulation of descent, inheritance, succession, and social order, this being its older and original function.

83:1.4 (922.7) The family, which grows out of marriage, is itself a stabilizer of the marriage institution together with the property mores. Other potent factors in marriage stability are pride, vanity, chivalry, duty, and religious convictions. But while marriages may be approved or disapproved on high, they are hardly made in heaven. The human family is a distinctly human institution, an evolutionary development. Marriage is an institution of society, not a department of the church. True, religion should mightily influence it but should not undertake exclusively to control and regulate it.

83:1.5 (922.8) Primitive marriage was primarily industrial; and even in modern times it is often a social or business affair.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mixture of the Andite stock and as a result of the mores of advancing civilization, marriage is slowly becoming mutual, romantic, parental, poetical, affectionate, ethical, and even idealistic. Selection and so-called romantic love, however, were at a minimum in primitive mating. During early times husband and wife were not much together; they did not even eat together very often. But among the ancients, personal affection was not strongly linked to sex attraction; they became fond of one another largely because of living and working together.

제 2 장. 구혼(求婚)과 약혼

원시인들의 결혼은 항상 그 소년과 소녀의 부모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습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대 사이의 전환기 단계에서는, 결혼 중개인 또는 전문적인 중매쟁이가 활동하였다. 이들 중매쟁이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깎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는 사제(司祭)들이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한 집단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가족

2. COURTSHIP AND BETROTHAL

83:2.1 (923.1) Primitive marriages were always planned by the parents of the boy and girl. The transition stage between this custom and the times of free choosing was occupied by the marriage broker or professional matchmaker. These matchmakers were at first the barbers; later, the priests. Marriage was originally a group affair; then a family matter; only recently has it

의 문제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개별 존재적인 모험으로 바뀌었다.

인력이 아니라 강제력으로 원시 결혼에 접근되었다. 초기 시대에서는 여자에게는 성(性)에서의 쌀쌀함이 없었고, 단지 사회관례로 인하여 끈질기게 심어진 성(性)에서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탈취가 거래보다 선행되었던 것처럼, 사로잡아 결혼하는 것이 계약에 의한 결혼보다 선행하였다. 어떤 여인들은 자기 부족의 나이 많은 남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생포될 때 모른 채 하곤 했다; 그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다른 부족 남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이 위장된 도주는, 강제로 생포하는 것과 나중에 매력에 의한 구혼 사이에 있었던 과도기적 단계였다.

초기 유형의 결혼식은 흉내를 낸 탈출, 한때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일종의 도주를 재연한 것이었다. 나중에는, 생포를 흉내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식의 일부분이 되었다. 현대의 소녀가 “생포”에 저항하는 척하고 결혼에 대하여 입이 무거운 듯 꾸미는 것은 모두 옛 관습의 유물들이다. 신부를 안아 문턱을 넘어 옮기는 것은 수많은 고대 실천 관행을 회상하는 것, 다른 것 중에서도 아내를 훔치던 시절을 회상해 내는 것이다.

여자는 결혼생활에서 자아-처분의 충만한 자유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였지만, 매우 지능적인 여자들은 지혜를 현명하게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항상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구혼(求婚)에 있어서 대개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어떤 때에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결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 구혼(求婚)과 결혼의 모든 위상들에서 여자들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혼 전에 하는 구혼에서 점차로 사랑, 낭만 그리고 개인적 선택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의 종족들에 대하여 안드-사람이 공헌한 것이다. 이성(異性) 간의 관계들은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다; 앞서 있는 많은 민족들은, 차츰차츰 편리성과 소유관계라는 구시대(舊時代)의 동기를 성(性) 인력의 다소 간은 이상화된 개념으로 갈아 치우고 있다. 삶의 동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性)에서의 충동과 애정의 감정이, 냉철한 계산을 대신하기 시작하고 있다.

약혼은 기원적으로 결혼과 동일하였다; 초기 사람들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는 약혼 기간 동안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들어서,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 동안의 성적(性的) 관계를 막는 금기가 조성된 것은 종교 때문이었다.

become an individual adventure.

83:2.2 (923.2) Coercion, not attraction, was the approach to primitive marriage. In early times woman had no sex aloofness, only sex inferiority as inculcated by the mores. As raiding preceded trading, so marriage by capture preceded marriage by contract. Some women would connive at capture in order to escape the domination of the older men of their tribe; they preferred to fall into the hands of men of their own age from another tribe. This pseudo elopement was the transition stage between capture by force and subsequent courtship by charming.

83:2.3 (923.3) An early type of wedding ceremony was the mimic flight, a sort of elopement rehearsal which was once a common practice. Later, mock capture became a part of the regular wedding ceremony. A modern girl's pretensions to resist "capture," to be reticent toward marriage, are all relics of olden customs. The carrying of the bride over the threshold is reminiscent of a number of ancient practices, among others, of the days of wife stealing.

83:2.4 (923.4) Woman was long denied full freedom of self-disposal in marriage, but the more intelligent women have always been able to circumvent this restriction by the clever exercise of their wits. Man has usually taken the lead in courtship, but not always. Woman sometimes formally, as well as covertly, initiates marriage. And as civilization has progressed, women have had an increasing part in all phases of courtship and marriage.

83:2.5 (923.5) Increasing love, romance, and personal selection in premarital courtship are an Andite contribution to the world races. The relations between the sexes are evolving favorably; many advancing peoples are gradually substituting somewhat idealized concepts of sex attraction for those older motives of utility and ownership. Sex impulse and feelings of affection are beginning to displace cold calculation in the choosing of life partners.

83:2.6 (923.6) The betrothal was originally equivalent to marriage; and among early peoples sex relations were conventional during the engagement. In recent times, religion has established a sex taboo on the period between betrothal and marriage.

제 3 장. 아내 사들이기와 결혼 지참금

고대의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신용하지 않았다; 영구적인 연합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물(保障物), 재산에 의해서 보증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내를 구매하는 비용은, 이

3. PURCHASE AND DOWRY

83:3.1 (923.7) The ancients mistrusted love and promises; they thought that abiding unions must be guaranteed by some tangible security,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purchase price of a wife was

혼 또는 파혼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손해를 받도록 선고되는 벌금 또는 공탁금으로 간주되었다. 일단 신부에 대한 값이 지불되고 나면, 많은 부족들은 남편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불로 지져서 신부의 몸 위에 새기도록 허용하였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아직도 아내를 구매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 또는 백인 남자의 아내를 그들이 고양이에 비유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대중에게 전시하는 신부 구경은 아내로서의 그들의 값을 더 높여보려는 관념에서 온 계기였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처럼 팔린 것은 아니었다.—후대의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아내는 양도가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냉정한 돈 거래만이 항상 그 여자를 사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현찰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만약에 호감을 주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한 값을 지불 할 수 없으면, 그 소녀의 아버지에게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진 후에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욕심 많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들이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줄만한 압력을 가하여 그가 요구하는 것을 변경시키게 하거나 또는 애인과 함께 달아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아버지들은 자기 딸들을 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신부 구매 비용을 계속 받는 대신에, 그 구매 비용과 거의 동등한 값이 나가는 부부를 위한 선물들을 주는 관습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일이 중지되면서, 이러한 선물은 신부의 지참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참금에 대한 관념은 신부의 자주성(自主性)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노예와 같은 아내 그리고 소유물로서의 동행자로 여기던 시대와는 매우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에게 그 지참금을 충분히 돌려주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신부와 신랑 양측의 부모들이 동시에 공탁금을 내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 위한, 실체 안에서 결혼 공탁금이었다. 구매하는 단계로부터 지참금의 단계로 옮겨가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만일 아내가 구매된 경우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소속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족에게 소속되었다.

제 4 장. 결혼 예식

결혼 예식은 결혼이 다만 두 개별존재가 내리는 결정에서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기원적으로 한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사실에서 발생되었다. 짝을 맺는 일은 개인적 기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관심사였다.

마술과 종교예배 그리고 예식은 고대 사람들의 전체 생활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결혼도 예외

regarded as a forfeit or deposit which the husband was doomed to lose in case of divorce or desertion. Once the purchase price of a bride had been paid, many tribes permitted the husband's brand to be burned upon her. Africans still buy their wives. A love wife, or a white man's wife, they compare to a cat because she costs nothing.

83:3.2 (924.1) The bride shows were occasions for dressing up and decorating daughters for public exhibition with the idea of their bringing higher prices as wives. But they were not sold as animals — among the later tribes such a wife was not transferable. Neither was her purchase always just a cold-blooded money transaction; service was equivalent to cash in the purchase of a wife. If an otherwise desirable man could not pay for his wife, he could be adopted as a son by the girl's father and then could marry. And if a poor man sought a wife and could not meet the price demanded by a grasping father, the elders would often bring pressure to bear upon the father which would result in a modification of his demands, or else there might be an elopement.

83:3.3 (924.2) As civilization progressed, fathers did not like to appear to sell their daughters, and so, while continuing to accept the bride purchase price, they initiated the custom of giving the pair valuable presents which about equaled the purchase money. And upon the later discontinuance of payment for the bride, these presents became the bride's dowry.

83:3.4 (924.3) The idea of a dowry was to convey the impression of the bride's independence, to suggest far removal from the times of slave wives and property companions. A man could not divorce a dowered wife without paying back the dowry in full. Among some tribes a mutual deposit was made with the parents of both bride and groom to be forfeited in case either deserted the other, in reality a marriage bond.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purchase to dowry, if the wife were purchased, the children belonged to the father; if not, they belonged to the wife's family.

4. THE WEDDING CEREMONY

83:4.1 (924.4) The wedding ceremony grew out of the fact that marriage was originally a community affair, not just the culmination of a decision of two individuals. Mating was of group concern as well as a personal function.

83:4.2 (924.5) Magic, ritual, and ceremony surrounded the entire life of the ancients, and

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결혼은 더욱 진지하게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점점 더 화려하게 꾸며졌다. 초기의 결혼은 재산권에 있어서의 한 요소였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예식이 요구되었고, 한편으로는 뒤이어 출생하는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널리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필요로 했다. 원시인들에게는 기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되어야만 하였다.

처음에는 결혼 예식이 약혼 수준에 더 가까웠고, 다만 함께 살 것이라는 의도를 대중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나중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기 딸을 그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전부였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예식이었고, 그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그녀를 신랑에게 넘겨주었다. 많은 레반트 민족들 사이에서는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결혼이 완료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적색 인종은 보다 복잡한 결혼 예식을 개발한 최초의 인종이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으며,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음모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식 능력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신비적인 또는 종교적인 예식들이 결혼과 관계적-연합되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과 풍성한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마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생일에 해당되는 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성가들에게 상담하기도 하였다. 한 때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든 결혼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이 공식적인 순서였다.

행운을 주는 날을 찾고자 하였는데, 목요일이 가장 좋은 날로 여겨졌으며, 보름달이 뜨는 날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신혼부부에게 곡식을 던지는 것은 많은 근동(近東) 지방 민족들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생산력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술적인 예식이었다. 동방의 어떤 민족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쌀을 사용한다.

불과 물은 항상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제단의 불과 촛불뿐만 아니라 성수(聖水)를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결혼식에서 흔하게 징표로 이용되었다. 가짜로 결혼식 날을 잡아 놓은 다음 갑자기 그 사건을 연기시킴으로써 귀신들과 영들을 속이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신혼부부에게 짓궂게 굴고 신혼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일은 모두 이러한 오랜 옛 시대의 잔재들인데, 옛날에는 영들이 보는 앞에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질투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는 것은, 신부를 변장시킴으로써 영들로 하여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샘하는 다른 영들이

marriage was no exception. As civilization advanced, as marriage became more seriously regarded, the wedding ceremony became increasingly pretentious. Early marriage was a factor in property interests, even as it is today, and therefore required a legal ceremony, while the social status of subsequent children demanded the widest possible publicity. Primitive man had no records; therefore must the marriage ceremony be witnessed by many persons.

83:4.3 (924.6) At first the wedding ceremony was more on the order of a betrothal and consisted only in public notification of intention of living together; later it consisted in formal eating together. Among some tribes the parents simply took their daughter to the husband; in other cases the only ceremony was the formal exchange of presents, after which the bride's father would present her to the groom. Among many Levantine peoples it was the custom to dispense with all formality, marriage being consummated by sex relations. The red man was the first to develop the more elaborate celebration of weddings.

83:4.4 (924.7) Childlessness was greatly dreaded, and since barrenness was attributed to spirit machinations, efforts to insure fecundity also led to the association of marriage with certain magical or religious ceremonials. And in this effort to insure a happy and fertile marriage, many charms were employed; even the astrologers were consulted to ascertain the birth star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t one time the human sacrifice was a regular feature of all weddings among well-to-do people.

83:4.5 (925.1) Lucky days were sought out, Thursday being most favorably regarded, and weddings celebrated at the full of the moon were thought to be exceptionally fortunate. It was the custom of many Near Eastern peoples to throw grain upon the newlyweds; this was a magical rite which was supposed to insure fecundity. Certain Oriental peoples used rice for this purpose.

83:4.6 (925.2) Fire and water were always considered the best means of resisting ghosts and evil spirits; hence altar fires and lighted candles, as well as the baptismal sprinkling of holy water, were usually in evidence at weddings. For a long time it was customary to set a false wedding day and then suddenly postpone the event so as to put the ghosts and spirits off the track.

83:4.7 (925.3) The teasing of newlyweds and the pranks played upon honeymooners are all relics of those far-distant days when it was thought best to appear miserable and ill at ease in the sight of the spirits so as to avoid arousing their envy. The wearing of the bridal veil is a relic of the times when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disguise the bride so that ghosts might not recognize her and also to hide her beauty from the gaze of the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시대의 잔재이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 전까지는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만 하였다.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차가 도착된 곳으로부터 교회의 제단 앞까지 양탄자를 까는 것이 그리스도교 사회관례 속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결혼 예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들 중의 하나는, 어느 사제로 하여금 결혼하는 사람들의 침실을 축복하게 하여 그 연합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혼 예식이 이행되기 훨씬 전에 행해졌다. 결혼에 관한 사회관례가 진화한 이 시대 동안에는,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밤에 침실에서 줄을 서 있었고, 그렇게 하여 결혼의 완료에 대한 합법적인 증인이 되었다.

운수와 관계되는 요소, 결혼 이전의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혼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결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성직자들과 마법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에서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은 일반적으로 약혼하는 부모들—나중에는 당사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었던 반면에, 지난 500년 동안에는 교회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지금은 결혼을 선언하고 있다.

otherwise jealous and envious spirits. The bride's feet must never touch the ground just prior to the ceremony.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it is still the custom under the Christian mores to stretch carpets from the carriage landing to the church altar.

83:4.8 (925.4) One of the most ancient forms of the wedding ceremony was to have a priest bless the wedding bed to insure the fertility of the union; this was done long before any formal wedding ritual was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in the evolution of the marriage mores the wedding guests were expected to file through the bedchamber at night, thus constituting legal witness to the consummation of marriage.

83:4.9 (925.5) The luck element, that in spite of all premarital tests certain marriages turned out bad, led primitive man to seek insurance protection against marriage failure; led him to go in quest of priests and magic. And this movement culminated directly in modern church weddings. But for a long time marriage was generally recognized as consisting in the decisions of the contracting parents — later of the pair — while for the last five hundred years church and state have assumed jurisdiction and now presume to make pronouncements of marriage.

제 5 장. 복수(複數)의 결혼

초기의 결혼 역사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부족의 남성들에게 소속되었다. 나중에는 한 여인이 한 번에 오직 한 남편만을 가질 수 있었다. 한 번에-한-남자라는 실천 관행은 집단적인 혼잡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이 허락된 반면, 그 남편은 그러한 임시적인 관계를 뜻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느슨하게 규제되는 관계적-연합은 무리를 지어 사는 상태와 구별되어 한 쌍으로 사는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 이러한 결혼 발전 단계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대개 어머니에게 소속되었다.

짝을 짓는 진화의 다음 단계는 집단적인 결혼이었다. 이러한 공동적 결혼 위상이 가족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끼어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쌍의 관계적-연합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결혼의 사회관례가 아직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매간의 결혼은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한 가족의 다섯 형제들이 다른 가족의 다섯 자매들과 결혼하곤 하였다. 보다 느슨한 유형의 전(全)세계적인 공동적 결혼이 점차 진화되어 여러 유형의 집단적 결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관계적-연합은 주로 토tem 사회관례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가정생활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발전되었는데 왜냐하면 성과 결혼의 규제는 더 많은 숫자의 자녀들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부족 자체가 살아남도록 기여하였

5. PLURAL MARRIAGES

83:5.1 (925.6) In the early history of marriage the unmarried women belonged to the men of the tribe. Later on, a woman had only one husband at a time. This practice of *one-man-at-a-time* was the first step away from the promiscuity of the herd. While a woman was allowed but one man, her husband could sever such temporary relationships at will. But these loosely regulated associations were the first step toward living pairwise in distinction to living herdwise. In this stage of marriage development children usually belonged to the mother.

83:5.2 (925.7) The next step in mating evolution was the *group marriage*. This communal phase of marriage had to intervene in the unfolding of family life because the marriage mores were not yet strong enough to make pair associations permanent. The brother and sister marriages belonged to this group; five brothers of one family would marry five sisters of another. All over the world the looser forms of communal marriage gradually evolved into various types of group marriage. And these group associations were largely regulated by the totem mores. Family life slowly and surely developed because sex and marriage regulation favored the survival of the tribe itself by insuring the survival of larger numbers of

기 때문이었다.

집단적 결혼은, 보다 진보된 부족들 사이에서 일부다처제—일부다처(一夫多妻)와 일처다부(一妻多夫)—의 실천 관행이 창발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일처다부는 한 번도 일반화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여왕 또는 부유한 여자들의 경우로 제한되었다; 더욱이 여러 형제들이 한 아내를 갖는 것은 관례상 어떤 가족의 문제였다. 특권계급과 경제적인 제한 때문에, 여러 남자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한 경우라도 그 여인은 오직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었으며, 다른 남자들은 공유되는 자손들의 “삼촌들”로서 대충 참고 지냈다.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목적으로 그의 아내와 결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키던 관습이었다. 이러한 관습은 결혼이 개별존재적인 관계적-연합보다는 가족의 일이었던 시대의 잔재였다.

여러 시대에 있어서 일부다처제도는 네 가지 종류의 아내를 인정하였다:

1. 예식을 치른 또는 합법적인 아내.
2. 애정을 느끼는 허락된 아내.
3. 첩, 계약상의 아내.
4. 노예 중에서 아내를 삼은 경우.

모든 아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모든 자녀들도 똑같이 취급되는 진정한 일부다처제는 아주 드물었다. 대개의 경우, 심지어는 복수(複數)의 결혼에서도, 그 가정은 우두머리 아내, 지위상의 동행자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녀만이 결혼 예식을 치렀으며, 그 신분상의 아내와 특별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매된 또는 지정된 배우자의 자녀들만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다.

지위상의 아내는 반드시 사랑 받는 아내일 필요는 없었다; 초기 시대에는 대개 그렇지 않았다. 사랑 받는 아내 또는 애인은, 그 종족들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진화하는 부족들이 늦-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과 섞인 이후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금기의 아내—법적 지위를 지닌 한 명의 아내—는 첩을 두는 사회관례를 만들었다. 이들 사회관례 밑에서는, 남자가 한 아내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몇 명의 첩이라도 성(性)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첩을 두는 일은 일부일처제에 이르는 디딤돌, 공공연한 일부다처제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중국인들의 첩은 아주 흔히 아내의 하녀들이었다. 나중에는, 유대인 사이에 그러하듯, 법적 아내가 남편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 여겼다.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옛날의 금기가 일부다처제를 크게 육성시켰다. 원시 시대의 여인들은 자주 아이를

children.

83:5.3 (926.1) Group marriages gradually gave way before the emerging practices of polygamy — polygyny and polyandry — among the more advanced tribes. But polyandry was never general, being usually limited to queens and rich women; furthermore, it was customarily a family affair, one wife for several brothers. Caste and economic restrictions sometimes made it necessary for several men to content themselves with one wife. Even then, the woman would marry only one, the others being loosely tolerated as “uncles” of the joint progeny.

83:5.4 (926.2) The Jewish custom requiring that a man consort with his deceased brother's widow for the purpose of “raising up seed for his brother,” was the custom of more than half the ancient world. This was a relic of the time when marriage was a family affair rather than an individual association.

83:5.5 (926.3) The institution of polygyny recognized, at various times, four sorts of wives:

83:5.6 (926.4) 1. The ceremonial or legal wives.

83:5.7 (926.5) 2. Wives of affection and permission.

83:5.8 (926.6) 3. Concubines, contractual wives.

83:5.9 (926.7) 4. Slave wives.

83:5.10 (926.8) True polygyny, where all the wives are of equal status and all the children equal, has been very rare. Usually, even with plural marriages, the home was dominated by the head wife, the status companion. She alone had the ritual wedding ceremony, and only the children of such a purchased or dowered spouse could inherit unless by special arrangement with the status wife.

83:5.11 (926.9) The status wife was not necessarily the love wife; in early times she usually was not. The love wife, or sweetheart, did not appear until the races were considerably advanced, more particularly after the blending of the evolutionary tribes with the Nodites and Adamites.

83:5.12 (926.10) The taboo wife — one wife of legal status — created the concubine mores. Under these mores a man might have only one wife, but he could maintain sex relations with any number of concubines. Concubinage was the steppingstone to monogamy, the first move away from frank polygyny. The concubines of the Jews, Romans, and Chinese were very frequently the handmaidens of the wife. Later on, as among the Jews, the legal wife was looked upon as the mother of all children born to the husband.

83:5.13 (926.11) The olden taboos on sex relations with a pregnant or nursing wife tended greatly to foster polygyny. Primitive women aged very early

낳고 힘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빨리 늙었다. (과중한 일이 맡겨진 그러한 아내들은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 달마다 한 주일씩 혼자 있도록 조치된 덕분에 겨우 그럭저럭 버티었다.) 아이를 기르는 일로 자주 지쳤던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보다 젊은 아내, 아이를 기르는 일과 가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도록 요청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얻은 아내들은 나이 많은 배우자들에 의해서 대개 환영을 받았다; 옛날에는 성적인 질투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의 숫자는 오직 그들을 부양하는 남자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될 뿐이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많은 숫자의 자녀들을 원하였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많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복수(複數) 아내들 대부분은 단순한 노동자, 노예를 삼은 아내에 불과하였다.

인간의 관습들은 진화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하렘의 목적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고도 많은 숫자의 같은 혈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지배자는 한 때 하렘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해야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하렘을 해산시켰다. 불만을 품은 아내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성난 친척들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 지배자를 내몰았고 그를 즉석에서 처치해 버렸다.

제 6 장.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일부일처제는 독점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별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명백한 최선책이다.

가장 일찍 있었던 일부일처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제는 문화적이며 사회적이지만,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보다 순수한 낫-사람과 아담-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며 그래서 모든 향상된 종족에게 위대한 문화적 가치로 있어왔다.

갈대아의 부족들은, 두 번째 아내 또는 첩을 얻지 않도록, 결혼 이전에 그녀의 배우자에게 담보물을 부과하는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인들 모두 일부일처의 결혼을 선호하였다. 조상 경배는 항상 일부일처제를 육성시켰는데, 그리스도교인 들이 결혼을 하나의 성례(聖禮)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심지어는 생활 표준의 향상도 복수의 아내를 두는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래하였을 무렵에 문명화된 모든 세계는 실천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실제적인 한 쌍의 결혼

because of frequent childbearing coupled with hard work. (Such overburdened wives only managed to exist by virtue of the fact that they were put in isolation one week out of each month when they were not heavy with child.) Such a wife often grew tired of bearing children and would request her husband to take a second and younger wife, one able to help with both childbearing and the domestic work. The new wives were therefore usually hailed with delight by the older spouses; there existed nothing on the order of sex jealousy.

83:5.14 (926.12) The number of wives was only limited by the ability of the man to provide for them. Wealthy and able men wanted large numbers of children, and since the infant mortality was very high, it required an assembly of wives to recruit a large family. Many of these plural wives were mere laborers, slave wives.

83:5.15 (927.1) Human customs evolve, but very slowly. The purpose of a harem was to build up a strong and numerous body of blood kin for the support of the throne. A certain chief was once convinced that he should not have a harem, that he should be contented with one wife; so he promptly dismissed his harem. The dissatisfied wives went to their homes, and their offended relatives swept down on the chief in wrath and did away with him then and there.

6. TRUE MONOGAMY — PAIR MARRIAGE

83:6.1 (927.2) Monogamy is monopoly; it is good for those who attain this desirable state, but it tends to work a biologic hardship on those who are not so fortunate. But quite regardless of the effect on the individual, monogamy is decidedly best for the children.

83:6.2 (927.3) The earliest monogamy was due to force of circumstances, poverty. Monogamy is cultural and societal, artificial and unnatural, that is, unnatural to evolutionary man. It was wholly natural to the purer Nodites and Adamites and has been of great cultural value to all advanced races.

83:6.3 (927.4) The Chaldean tribes recognized the right of a wife to impose a premarital pledge upon her spouse not to take a second wife or concubine; both the Greeks and the Romans favored monogamous marriage. Ancestor worship has always fostered monogamy, as has the Christian error of regarding marriage as a sacrament. Even the elevation of the standard of living has consistently militated against plural wives. By the time of Michael's advent on Urantia practically all of the civilized world had attained the level of theoretical monogamy. But this passive monogamy did not mean that mankind had

의 실천에 익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어떤 독점적인 성(性) 관계적-연합인, 한 쌍의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일부일처 제도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안, 그것이 요구하는 바에 최선의 협조를 하고 고려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새롭고도 개선된 사회 계층 속에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 불행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난처한 상황을 사회가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경쟁하는 사회 경기장 속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일은 현 사회관례가 강요해 온 이길 수 없는 난관이나 혹은 각양각색의 제약에서 기인될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룩한 사람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지만,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틀림없다.

소수의 불행한 자들은 항상, 대다수가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사회관례 아래에서 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참아 내야만 해 왔다; 그러나 혜택을 입은 대다수는, 향상하는 사회적 진화의 최고의 사회관례에 대한 인정 밑에서, 모든 생물학적 충동에 만족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성(性)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자기들보다 운이 덜 따른 동료들을, 반드시 친절함과 배려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일부일처제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인간의 성적인 진화의 이상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진정한 한 쌍의 결혼에 대한 이 이상(理想)은 자아-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하는 상대방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모든 인간적 덕행, 고된 자아-통제의 정점에 이르지 못해, 너무 자주 실패된다.

일부일처제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진화로부터 구별되는 사회적인 문명이 진보되는 정도의 척도이다. 일부일처제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명의 즉각적인 보존과 더 향상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것은 정서의 섬세함과, 도덕적 성격의 세련됨, 그리고 일부일처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안에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

한 쌍의 결혼은,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능률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인 긴밀한 남들과 효과적인 협동을 선호하고 육성시킨다. 노골적인 강요에서 시작된 결혼은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자아-수양, 자아-통제, 자아-표현, 그리고 자아-영속이라는 훌륭한 제도로 변화하였다.

제 7 장. 혼인의 해체

결혼 사회관례의 초기 진화에서는, 결혼은 뜻

become habituated to the practice of real pair marriage.

83:6.4 (927.5) While pursuing the monogamic goal of the ideal pair marriage, which is, after all, something of a monopolistic sex association, society must not overlook the unenviable situation of those unfortunate men and women who fail to find a place in this new and improved social order, even when having done their best to co-operate with, and enter into, its requirements. Failure to gain mates in the social arena of competition may be due to insurmountable difficulties or multitudinous restrictions which the current mores have imposed. Truly, monogamy is ideal for those who are in, but it must inevitably work great hardship on those who are left out in the cold of solitary existence.

83:6.5 (927.6) Always have the unfortunate few had to suffer that the majority might advance under the developing mores of evolving civilization; but always should the favored majority look with kindness and consideration on their less fortunate fellows who must pay the price of failure to attain membership in the ranks of those ideal sex partnerships which afford the satisfaction of all biologic urges under the sanction of the highest mores of advancing social evolution.

83:6.6 (927.7) Monogamy always has been, now is, and forever will be the idealistic goal of human sex evolution. This ideal of true pair marriage entails self-denial, and therefore does it so often fail just because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deficient in that acme of all human virtues, rugged self-control.

83:6.7 (927.8) Monogamy is the yardstick which measures the advance of social civilization as distinguished from purely biologic evolution. Monogamy is not necessarily biologic or natural, but it is indispensable to the immediate mainten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civilization. It contributes to a delicacy of sentiment, a refinement of moral character, and a spiritual growth which are utterly impossible in polygamy. A woman never can become an ideal mother when she is all the while compelled to engage in rivalry for her husband's affections.

83:6.8 (928.1) Pair marriage favors and fosters that intim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co-operation which is best for parental happiness, child welfare, and social efficiency. Marriage, which began in crude coercion, is gradually evolving into a magnificent institution of self-culture, self-control, self-expression, and self-perpetuation.

7. THE DISSOLUTION OF WEDLOCK

83:7.1 (928.2) In the early evolution of the marital

대로 끝낼 수 있는 느슨한 연합이었고, 자녀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결속은 본능적인 것이었고 사회관례에서의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기능해 왔다.

원시 민족들 사이에서는 대략 절반 정도의 결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헤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었고, 그것은 항상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갔으며;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들은 영의 세계에서 뱀이 된다고 믿었다. 보다 더 원시적인 사회관례 밑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자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러한 기준은 어떤 민족들 사이에서 20세기까지도 유지되어 왔다.

사회관례가 진화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을 발전시켰는데: 이혼을 허용하는 평범한 것과,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성직자 결혼이 있었다. 아내를 구매하는 것과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 결혼 실패에 대한 벌금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헤어지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연합들은 이러한 구식(舊式)의 재산 요소에 의해서 안정을 이룩하였다.

공동체 신분에서의 사회적 압력과 재산의 특권은 결혼에서의 금기와 사회관례를 유지하는 데 늘 효력이 있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은 꾸준한 진보를 이룩하였고 현대 세계의 향상된 기초 위에 놓여있다, 비록 그것이 개별적 선택—새로운 해방—이 가장 크게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널리 퍼진 불만으로 말미암아 위협적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있다. 좀 더 진보적인 종족 안에서 갑작스레 가속화된 사회 진화의 결과로서, 이들에 대한 조절의 격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조금 적게 향상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옛 시절 사회관례의 안내 밑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 보다 더 구식(舊式)이고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소유 본능의 동기 대신에, 더욱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극도로 개별존재적인 사랑의 동기로 새롭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대체됨으로써, 결혼 제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의 결혼 동기는 언제나 실제적인 결혼 윤리를 훨씬 초월하였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서 서방의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은 갑작스럽게 도가 지나친 자아-중심적으로 흘렀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종족들의 성적 충동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현존이 사회관례의 일시적인 붕괴 또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지나온 모든 시대에서 결혼에 대한 실제적 시험은, 모든 가정생활에서 피해될 수 없는 지속적인 친밀성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허영심과 자기를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교육받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버릇없는 두 젊은이에게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자아-양보, 타협, 헌신, 자녀 육성에 이타적으로 전념하는 것—에서 크게 성공

mores, marriage was a loose union which could be terminated at will, and the children always followed the mother; the mother-child bond is instinctive and has functioned regardless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mores.

83:7.2 (928.3) Among primitive peoples only about one half the marriages proved satisfactory. The most frequent cause for separation was barrenness, which was always blamed on the wife; and childless wives were believed to become snakes in the spirit world. Under the more primitive mores, divorce was had at the option of the man alone, and these standards have persisted to the twentieth century among some peoples.

83:7.3 (928.4) As the mores evolved, certain tribes developed two forms of marriage: the ordinary, which permitted divorce, and the priest marriage, which did not allow for separation. The inauguration of wife purchase and wife dowry, by introducing a property penalty for marriage failure, did much to lessen separation. And, indeed, many modern unions are stabilized by this ancient property factor.

83:7.4 (928.5) The social pressure of community standing and property privileges has always been potent in the maintenance of the marriage taboos and mores. Down through the ages marriage has made steady progress and stands on advanced ground in the modern world, notwithstanding that it is threateningly assailed by widespread dissatisfaction among those peoples where individual choice — a new liberty — figures most largely. While these upheavals of adjustment appear among the more progressive races as a result of suddenly accelerated social evolution, among the less advanced peoples marriage continues to thrive and slowly improve under the guidance of the older mores.

83:7.5 (928.6) The new and sudden substitution of the more ideal but extremely individualistic love motive in marriage for the older and long-established property motive, has unavoidably caused the marriage institution to become temporarily unstable. Man's marriage motives have always far transcended actual marriage morals, and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Occidental ideal of marriage has suddenly far outrun the self-centered and but partially controlled sex impulses of the races. The presence of large numbers of unmarried persons in any society indicates the temporary breakdown or the transition of the mores.

83:7.6 (928.7) The real test of marriage, all down through the ages, has been that continuous intimacy which is inescapable in all family life. Two pampered and spoiled youths, educated to expect every indulgence and full gratification of vanity and ego, can hardly hope to make a great success of marriage and home building — a lifelong

하리라는 기대를 거의 가질 수 없다.

구혼(求婚)의 단계로 들어가는 높은 정도의 상상력과 환상적인 낭만은, 현대의 서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이며, 그 모든 것은 여인들의 과도한 개인적 자유와 증대되는 경제적 해방에 의해서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자아-통제의 결핍과 정상적인 개인성 조절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는 쉬운 이혼은, 극심한 개인적 고뇌와 종족의 고통을 통하여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미숙한 사회적 단계로 곧장 되돌아가게 할 뿐이다.

그러나 사회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한, 사회 계층이 충분한 혼전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숙한 젊은이의 이상주의가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한, 이혼은 계속 유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집단이 젊은이들의 결혼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한, 이혼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하는 사회관례가 빠른 속도로 자라 가는 시대 동안에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해야만 한다.

고대의 사람들은 지금-현재의 일부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혼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현대에서의 조급하고 성공하지 못한 결혼 대부분이, 결혼을 위하여 젊은 남녀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던 고대의 실천 관행보다 크게 개선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심한 모순은,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이상화 시키면서도, 한편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8 장. 결혼의 이상화(理想化)

가정으로 절정을 이루는 결혼은 정말로 사랑의 가장 고상한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적인 것이다; 결혼은 결코 신성한 약속으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셋 자손 사제들이 결혼을 종교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에덴 이후 수천 년 동안, 짝을 맺는 일은 순전히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제도로 계속되었다.

인간적인 관계적-연합들을 신성한 관계적-연합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결혼-가정 관계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진화하는 세계들 속에 있는 필사자들의 물질적인 기능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영적 진보가 진보를 위한 남편과 아내의 진지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이 반드시 신성시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적인 진보는 인간 노력에서의 다른 큰길에 진지하게 몰두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partnership of self-effacement, compromise, devotion, and unselfish dedication to child culture.

83:7.7 (929.1) The high degree of imagination and fantastic romance entering into courtship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increasing divorce tendencies among modern Occidental peoples, all of which is further complicated by woman's greater personal freedom and increased economic liberty. Easy divorce, when the result of lack of self-control or failure of normal personality adjustment, only leads directly back to those crude societal stages from which man has emerged so recently and as the result of so much personal anguish and racial suffering.

83:7.8 (929.2) But just so long as society fails to properly educate children and youths, so long as the social order fails to provide adequate premarital training, and so long as unwise and immature youthful idealism is to be the arbiter of the entrance upon marriage, just so long will divorce remain prevalent. And in so far as the social group falls short of providing marriage preparation for youths, to that extent must divorce function as the social safety valve which prevents still worse situations during the ages of the rapid growth of the evolving mores.

83:7.9 (929.3) The ancients seem to have regarded marriage just about as seriously as some present-day people do. And it does not appear that many of the hasty and unsuccessful marriages of modern times are much of an improvement over the ancient practices of qualifying young men and women for mating. The great inconsistency of modern society is to exalt love and to idealize marriage while disapproving of the fullest examination of both.

8. THE IDEALIZATION OF MARRIAGE

83:8.1 (929.4) Marriage which culminates in the home is indeed man's most exalted institution, but it is essentially human; it should never have been called a sacrament. The Sethite priests made marriage a religious ritual; but for thousands of years after Eden, mating continued as a purely social and civil institution.

83:8.2 (929.5) The likening of human associations to divine associations is most unfortunate. The union of husband and wife in the marriage-home relationship is a material function of the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rue, indeed, much spiritual progress may accrue consequent upon the sincere human efforts of husband and wife to progres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marriage is necessarily sacred. Spiritual progress is attendant upon sincere application to other avenues of human endeavor.

결혼은 조절자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미가엘과 그의 인간 형제들 사이의 형제우애관계에도 비교될 수 없다. 그러한 관계들은 어떤 점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관계적-연합과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은, 이러한 관계성들에 대한 인간의 오해가 결혼의 의미에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어떤 필사자 집단들이 결혼을 신성한 행동에 의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불행한 일이다. 그러한 신념들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환경이나 바람에는 상관없이 결혼한 상태의 영구성(永久性)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 괴멸된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신(神)이 그러한 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만일 하느님께서 어떤 두 가지 사물들 또는 사람들과 일단 함께 하셨다면, 신성한 뜻이 그들의 분리를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연합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제도인 결혼의 경우를 볼 때, 과연 누가 재판자리에 앉아서, 어떤 결혼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기원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이며, 그에 비하여 어떤 결혼이 우주의 감독들로부터 허락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의 구체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이 있다. 각각의 지역 체계의 수도에서는,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그리고 자손들을 낳고 기르는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의 물질아들들과 딸들이 남자와 여자의 가장 이상적인 연합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결국, 필사자의 이상적인 결혼은 인간적으로 신성하다.

결혼은 언제나 현세적인 이상향에 대한 사람의 최극의 꿈이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비록 이러한 꿈이 전반적으로 실현되는 일은 드물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더 큰 분투로 전진하도록 인류를 항상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지속된다. 그러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가정생활의 상호-연관에 따른 고된 요구사항들에 빠지기 전에 결혼의 실체에 관한 어떤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 젊은이다운 이상화는 어느 정도의 혼전(婚前) 환멸감으로 조절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상화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꿈들은 가정생활의 장래 목표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만약에 그것이 결혼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정생활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의 실현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지만 앓는다면, 모두 자극이 되는 것인 동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이상(理想)들은 최근에 들어서 크게 진보하였다; 일부 민족들 중에는 여자가 그 배우자와 실천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가정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성적(性的)인 성실성과 함께, 후손들을 기르기 위한 충실한 협력체

83:8.3 (929.6) Neither can marriage be truly compared to the relation of the Adjuster to man nor to the fraternity of Christ Michael and his human brethren. At scarcely any point are such relationships comparable to the association of husband and wife. And it is most unfortunate that the human misconception of these relationships has produced so much confusion as to the status of marriage.

83:8.4 (929.7) It is also unfortunate that certain groups of mortals have conceived of marriage as being consummated by divine action. Such beliefs lead directly to the concept of the indissolubility of the marital state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or wish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ut the very fact of marriage dissolution itself indicates that Deity is not a conjoining party to such unions. If God has once joined any two things or persons together, they will remain thus joined until such a time as the divine will decrees their separation. But, regarding marriage, which is a human institution, who shall presume to sit in judgment, to say which marriages are unions that might be approved by the universe supervisors in contrast with those which are purely human in nature and origin?

83:8.5 (930.1) Nevertheless, there is an ideal of marriage on the spheres on high. On the capital of each local system the Material Sons and Daughters of God do portray the height of the ideals of the union of man and woman in the bonds of marriage and for the purpose of procreating and rearing offspring. After all, the ideal mortal marriage is *humanly* sacred.

83:8.6 (930.2) Marriage always has been and still is man's supreme dream of temporal ideality. Though this beautiful dream is seldom realized in its entirety, it endures as a glorious ideal, ever luring progressing mankind on to greater strivings for human happiness. But young men and women should be taught something of the realities of marriage before they are plunged into the exacting demands of the interassociations of family life; youthful idealization should be tempered with some degree of premarital disillusionment.

83:8.7 (930.3) The youthful idealization of marriage should not, however, be discouraged; such dreams are the visualization of the future goal of family life. This attitude is both stimulating and helpful providing it does not produce an insensitivity to the realization of the practical and commonplace requirements of marriage and subsequent family life.

83:8.8 (930.4) The ideals of marriage have made great progress in recent times; among some peoples woman enjoys practically equal rights with her consort. In concept, at least, the family is becoming a loyal partnership for rearing offspring,

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결혼이라 해도, 모든 개인성과 개별존재성에서의 쌍방 간의 독점권을 부여할 만큼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혼은 개별존재적인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화하는 사회적 협동체이며, 현재의 사회관례 아래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금기들에 의해 규제되고, 사회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시행된다.

20세기에 이루어지는 결혼들은 과거 시대의 것들과 비교할 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관한 제도는 현재 심각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해방, 지난 세대들의 사회관례의 느린 진화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부인되었던 권리가 다급하게 증강됨으로써 그 문제들이 사회 조직 속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려나오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배치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서 제시되었음]

accompanied by sexual fidelity. But even this newer version of marriage need not presume to swing so far to the extreme as to confer mutual monopoly of all personality and individuality. Marriage is not just an individualistic ideal; it is the evolving social partnership of a man and a woman, existing and functioning under the current mores, restricted by the taboos, and enforc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ociety.

83:8.9 (930.5) Twentieth-century marriages stand high in comparison with those of past ages, notwithstanding that the home institution is now undergoing a serious testing because of the problems so suddenly thrust upon the social organization by the precipitate augmentation of woman's liberties, rights so long denied her in the tardy evolution of the mores of past generations.

83:8.10 (930.6)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 84 편 결혼과 가족 일생

⇨ 083

유랜시아 책

08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4 편 결혼과 가족 일생

섹션

소개

제 1 장. 원시적인 부부 관계적-연합

제 2 장. 초기의 모계(母系)-가정

제 3 장.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정

제 4 장. 초기 사회 속에서의 여자들의 지위

제 5 장. 발전하는 사회관계 밑에서의 여자

제 6 장. 남자와 여자의 동반적 관계

제 7 장. 결혼생활의 이상적인 원리들

제 8 장. 자아-충족의 위험성

PAPER 84

MARRIAGE AND FAMILY LIFE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Pair Associations

2. The Early Mother-Family

3. The Family under Father Dominance

4. Woman's Status in Early Society

5. Woman under the Developing Mores

6. The Partnership of Man and Woman

7. The Ideals of Family Life

8. Dangers of Self-Gratification

소개

결혼은, 물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성립되었고, 성적 욕구에 의해 미화(美化)되었으며, 종교에 의해 인정되면서 강화되었고, 국가에 의해 요구되고 규제되었으며, 반면에 후대에는 진화하는 사랑이, 문명의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제도인 가정의 조상과 창조자로서 결혼을 정당화시키고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모든 교육적 노력의 중심과 본질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짝을 짓는 일은 변화하는 자아-충족의 정도에 따른 순수한 자아-영속의 행동이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주로 자아-유지의 문제이며, 그것은 사회의 진화를 내포한다. 사회 자체는 가족 단위가 집합된 기구이다. 개별존재들은 행성에서의 요소들로서 매우 일시적이다—오직 가족들만이 사회 진화에 있어서 계속 존재하는 대리자이다. 가정은 문화와 지식의 강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이다.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제도이다. 결혼은 자아-유지 속에서의 협동과 자아-영속 속에서

INTRODUCTION

84:0.1 (931.1) MATERIAL necessity founded marriage, sex hunger embellished it, religion sanctioned and exalted it, the state demanded and regulated it, while in later times evolving love is beginning to justify and glorify marriage as the ancestor and creator of civilization's most useful and sublime institution, the home. And home building should be the center and essence of all educational effort.

84:0.2 (931.2) Mating is purely an act of self-perpetuation associated with varying degrees of self-gratification; marriage, home building, is largely a matter of self-maintenance, and it implies the evolution of society. Society itself is the aggregated structure of family units. Individuals are very temporary as planetary factors — only families are continuing agencies in social evolution. The family is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river of culture and knowledge flow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84:0.3 (931.3) The home is basically a sociologic institution. Marriage grew out of co-operation in

의 협력으로부터 자라났으며, 자아-충족의 요소는 주로 부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세 가지 기능들 모두를 포함하며, 반면에 생명 번식은 그것을 근본적인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性)은 그것을 다른 모든 사회적 활동들로부터 구별되게 한다.

제 1 장. 원시적인 부부 관계적-연합

결혼은 성적인 관계들을 기초로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원시인들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의무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性) 욕망을 만족시켰다.

여인은 자기 자녀에게 육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애착을 갖기 때문에, 남성과의 협동에 의존하며, 이러한 것이 그녀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보호 장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어떤 생물학적 충동도 남자를 결혼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그를 가두어 두는 힘이 훨씬 약하였다. 결혼이 남자에게 매력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그것이 원시인들로 하여금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와 자녀들이 공유하는 원시적인 은신처에 매력을 갖게 하였다.

결혼은 성(性) 관계에서의 책무들에 대한 의식적인 실현에 의하여 발생된 것도 아니었다. 원시인은 성적 즐거움 및 그 이후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 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 원시인들은 초기에는 아기들이 영적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임신은 진화하는 귀신이 어떤 영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불길한 눈과 음식물 역시 처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반면에 후대에는 생명의 시작을 호홉과 그리고 햇빛과 관련시키는 믿음들이 있었다.

초기 민족들 대부분은 귀신들을 바다와 연관시켰으며; 그래서 처녀들은 목욕하는 실천 관행에 있어서 크게 제한을 받았다; 젊은 여자들은 성(性) 관계들을 갖는 것보다도 밀물 때에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였다. 불구자로 태어난 아기들 또는 조산된 아기들은, 부주의한 목욕 또는 침술곳은 영이 활동한 결과 때문에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올 길을 발견한 동물들의 새끼로 간주되었다. 당연히, 야만인들은 그러한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다.

임신시키는 귀신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깨우침의 첫 단계가 되었다. 그 후로 사람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유전적 요소들이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심지어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인간 생명의 기원

self-maintenance and partnership in self-perpetuation, the element of self-gratification being largely incidental. Nevertheless, the home does embrace all three of the essential functions of human existence, while life propagation makes it the fundamental human institution, and sex sets it off from all other social activities.

1. PRIMITIVE PAIR ASSOCIATIONS

84:1.1 (931.4) Marriage was not founded on sex relations; they were incidental thereto. Marriage was not needed by primitive man, who indulged his sex appetite freely without encumbering himself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wife, children, and home.

84:1.2 (931.5) Woman, because of physical and emotional attachment to her offspring, is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the male, and this urges her into the sheltering protection of marriage. But no direct biologic urge led man into marriage — much less held him in. It was not love that made marriage attractive to man, but food hunger which first attracted savage man to woman and the primitive shelter shared by her children.

84:1.3 (931.6) Marriage was not even brought about by the conscious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of sex relations. Primitive man comprehended no connection between sex indulgence and the subsequent birth of a child. It was once universally believed that a virgin could become pregnant. The savage early conceived the idea that babies were made in spiritland; pregnancy wa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a woman's being entered by a spirit, an evolving ghost. Both diet and the evil eye were also believed to be capable of causing pregnancy in a virgin or unmarried woman, while later beliefs connected the beginnings of life with the breath and with sunlight.

84:1.4 (932.1) Many early peoples associated ghosts with the sea; hence virgins were greatly restricted in their bathing practices; young women were far more afraid of bathing in the sea at high tide than of having sex relations. Deformed or premature babies were regarded as the young of animals which had found their way into a woman's body as a result of careless bathing or through malevolent spirit activity. Savages, of course, thought nothing of strangling such offspring at birth.

84:1.5 (932.2) The first step in enlightenment came with the belief that sex relations opened up the way for the impregnating ghost to enter the female. Man has since discovered that father and mother are equal contributors of the living inheritance factors which initiate offspring. But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many parents still endeavor to

에 대해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자기 자녀들을 기르려고 한다.

다소 단순한 종류의 가족은 아이를 낳는 기능이 어머니와-자녀 관계를 일으킨다는 사실로서 지켜지게 되었다. 모성애는 본능적이다; 그것은 결혼이 그런 것처럼 그런 사회관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모든 포유동물의 모성애는 지역우주의 보조 마음-영들의 선천적 수여자질이며, 그 강함과 헌신의 정도는 그 종(種)의 어떤 도움도 없는 유아기의 길이와 항상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적이고 강력하고 본능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시 시대의 여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생소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강제적인 모성애는, 남자와의 모든 투쟁에 있어서 여자에게 항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감정적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인간 종족 속에 있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야심과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방해될 수도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적-연합은 결혼도 아니고 가정 자체도 아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핵(核)의 역할을 하였다. 짝짓기의 진화에 있어서의 큰 진보는, 이러한 임시적 협력체가 결과적으로 생긴 자손을 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 부부들의 반목을 일으키는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관계적-연합의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회는 이러한 남녀 간의 협동체에 의해서 크게 증진되었다. 가족과 자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동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남자들 또는 두 여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 이성(異性)간에 짝을 짓는 이러한 일은 생존 능력을 증대시켰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 되었다. 성(性)에 따른 노동의 구분 역시 편안함을 제공하였고 행복을 증대시켰다.

제 2 장. 초기의 모계(母系)-가정

여자의 주기적인 출혈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흘리는 많은 피로 인하여, 피가 아기의 창조자라는 (심지어는 혼의 근원이라는) 추측이 초기 시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인간적 관계들에 있어서 혈연-동맹이 기원되었다. 초기 시대에는 모든 후손들이 여자의 계통을 따라 계수 되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유전적 관계였다.

어머니와 자녀의 본능적인 생물학적 혈연 동맹으로부터 자라났던 원시적인 가족은 필연적으로 모계-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부족들은 이러한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하였다. 모계-가정은 유목민 집단 속에서의 집단적 결혼 단계로부터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의 부계(父系)-가정들에

keep their children in more or less ignorance as to the origin of human life.

84:1.6 (932:3) A family of some simple sort was insured by the fact that the reproductive function entails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Mother love is instinctive; it did not originate in the mores as did marriage. All mammalian mother love is the inherent endowment of the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and is in strength and devotion alway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the helpless infancy of the species.

84:1.7 (932:4) The mother and child relation is natural, strong, and instinctive, and one which, therefore, constrained primitive women to submit to many strange conditions and to endure untold hardships. This compelling mother love is the handicapping emotion which has always placed woman at such a tremendous disadvantage in all her struggles with man. Even at that, maternal instinct in the human species is not overpowering; it may be thwarted by ambition, selfishness, and religious conviction.

84:1.8 (932:5) While the mother-child association is neither marriage nor home, it was the nucleus from which both sprang. The great advance in the evolution of mating came when these temporary partnerships lasted long enough to rear the resultant offspring, for that was homemaking.

84:1.9 (932:6) Regardless of the antagonisms of these early pairs, notwithstanding the looseness of the association, the chances for survival were greatly improved by these male-female partnerships. A man and a woman, co-operating, even aside from family and offspring, are vastly superior in most ways to either two men or two women. This pairing of the sexes enhanced survival and was the very beginning of human society. The sex division of labor also made for comfort and increased happiness.

2. THE EARLY MOTHER-FAMILY

84:2.1 (932:7) The woman's periodic hemorrhage and her further loss of blood at childbirth early suggested blood as the creator of the child (even as the seat of the soul) and gave origin to the blood-bond concept of human relationships. In early times all descent was reckoned in the female line, that being the only part of inheritance which was at all certain.

84:2.2 (932:8) The primitive family, growing out of the instinctive biologic blood bond of mother and child, was inevitably a mother-family; and many tribes long held to this arrangement. The mother-family was the only possible transition from the stage of group marriage in the horde to the later and

해당하는 후대의 개선된 가정생활의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하였던 과도기적 형태였다. 모계-가정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었으며, 부계-가정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이었다. 북아메리카 적색 인종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모계-가정은 이로쿼이족이 실제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 주요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모계-가정의 사회관례 아래에서는 아내의 어머니가 집안에서의 실질적인 최극 권한을 누렸으며; 가족을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내의 남자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난 후에 종종 이름이 바뀌곤 하였다.

가장 초기의 부족들은 아버지의 공적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믿거나, 또는 어머니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닮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모계-가정이 부계-가정으로 전환된 후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은 모든 공적을 가졌으며, 임신한 여인에 대한 많은 금기들은 나중에 더 확장되어 그녀의 남편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아버지가 될 사람은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일을 멈추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서 3일내지 8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그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지만; 남편은 계속 침실에 남아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고안된 초기 사회관례의 일부분이었다.

처음에는 남자가 자기 아내의 족속에게로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남자가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마친 후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본래의 자기 족속에게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모계-가정으로부터 부계-가정으로의 변환은, 똑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허용하면서 사촌끼리 결혼하는 어떤 유형들은 금지하는, 어떤 면에서 무의미한 일들을 설명해 준다.

사냥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목축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사회관례에 의해 음식 공급 통제가 남자에게 넘겨지자, 모계-가정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사라진 단순한 이유는, 보다 새롭게 형성되는 부계-가정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들에게 주어졌던 힘으로는 남편-아버지에게 집중된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정의 힘을 키우는 일과 자녀를 키우는 복합적인 임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 나타나는 아내 훔치기와 후대에 이루어진 아내 구매(購買)는 모계-가정이 사라지도록 재촉하였다.

모계-가정으로부터 부계-가정으로의 엄청난 변화는, 인간 종족에 의해서 이제까지 수행되었던 가장 급진적인 그리고 완벽하게 180도 방향이 전환되는 조절들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변화는 즉

improved home life of the polygamous and monogamous father-families. The mother-family was natural and biologic; the father-family i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he persistence of the mother-family among the North American red men is one of the chief reasons why the otherwise progressive Iroquois never became a real state.

84:2.3 (933.1) Under the mother-family mores the wife's mother enjoyed virtually supreme authority in the home; even the wife's brothers and their sons were more active in family supervision than was the husband. Fathers were often renamed after their own children.

84:2.4 (933.2) The earliest races gave little credit to the father, looking upon the child as coming altogether from the mother. They believed that children resembled the father as a result of association, or that they were “marked” in this manner because the mother desired them to look like the father. Later on, when the switch came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the father took all credit for the child, and many of the taboos on a pregnant woman were subsequently extended to include her husband. The prospective father ceased work as the time of delivery approached, and at childbirth he went to bed, along with the wife, remaining at rest from three to eight days. The wife might arise the next day and engage in hard labor, but the husband remained in bed to receive congratulations; this was all a part of the early mores designed to establish the father's right to the child.

84:2.5 (933.3) At first, it was the custom for the man to go to his wife's people, but in later times, after a man had paid or worked out the bride price, he could take his wife and children back to his own people. The transition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explains the otherwise meaningless prohibitions of some types of cousin marriages while others of equal kinship are approved.

84:2.6 (933.4) With the passing of the hunter mores, when herding gave man control of the chief food supply, the mother-family came to a speedy end. It failed simply because it could not successfully compete with the newer father-family. Power lodged with the male relatives of the mother could not compete with power concentrated in the husband-father. Woman was not equal to the combined tasks of childbearing and of exercising continuous authority and increasing domestic power. The oncoming of wife stealing and later wife purchase hastened the passing of the mother-family.

84:2.7 (933.5) The stupendous change from the mother-family to the father-family is one of the most radical and complete right-about-face adjustments ever executed by the human race.

시 더 많은 사교적인 표현과 증진된 가정적 모험을 유도해 내었다.

This change led at once to greater social expression and increased family adventure.

제 3 장.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정

3. THE FAMILY UNDER FATHER DOMINANCE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여자들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유도하였겠지만, 여자들이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은, 사회관례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월한 체력이었다. 목축 생활은 새로운 사회관례 체계, 가부장(家父長)적 유형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이바지하였다; 목축업과 초기 농업의 사회관례 밑에서 이루어진 가족 합일의 기초는, 명백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의 권위였다. 국가적인 것이든지 또는 가족적인 것이든지, 모든 사회는 가부장적 체제의 독재적인 권위의 단계를 거쳤다.

구약 성서 시대 동안에 여성을 거의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관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히브리의 족장들은, “주님은 나의 목자(牧者)이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목축업자들이었다.

그러나 지나간 시대들에 있어서 여자들이 낮게 취급된 것은 남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들 자신 때문이었다. 여자들은 원시 시대 동안에 사회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위기 상황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극적인 영웅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이 되지 못하였다. 모성애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부족을 방어함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방해적인 요소였다.

또한 원시시대의 여인들은 남자의 호전성과 정력에 대하여 감탄하고 칭찬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전사들에 대한 이러한 찬미는 남성의 자기를 높여준 반면, 여성의 자기는 그만큼 억눌렸고, 여자들이 더욱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군인들의 제복은 여전히 여성들의 감정을 강력하게 휘젓는다.

더욱 진보된 종족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여자들은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더욱 약삭빠르게 되었다;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익혔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간 생각이 덜 깊지만, 더 기민하고 보수적이 되었다. 전쟁터와 사냥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남자들이라도 대개 술책으로 이길 수 있다.

목축을 하는 남자들이 자기 가축들을 식용으로 키웠지만, 이러한 목축 시대 전체 동안에 여자들은 여전히 채소를 양식으로 공급해야만 하였다. 원시 시대의 남자들은 흙을 멀리하였다; 흙은 전적으로 너무 평화롭고 너무 모험심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식물을 더 잘 키울

84:3.1 (933.6) It may be that the instinct of motherhood led woman into marriage, but it was man's superior strength, together with the influence of the mores, that virtually compelled her to remain in wedlock. Pastoral living tended to create a new system of mores, the patriarchal type of family life; and the basis of family unity under the herder and early agricultural mores was the unquestioned and arbitrary authority of the father. All society, whether national or familial, passed through the stage of the autocratic authority of a patriarchal order.

84:3.2 (934.1) The scant courtesy paid womankind during the Old Testament era is a true reflection of the mores of the herdsmen. The Hebrew patriarchs were all herdsmen, as is witnessed by the saying, "The Lord is my Shepherd."

84:3.3 (934.2) But man was no more to blame for his low opinion of woman during past ages than was woman herself. She failed to get social recognition during primitive times because she did not function in an emergency; she was not a spectacular or crisis hero. Maternity was a distinct disability in the existence struggle; mother love handicapped women in the tribal defense.

84:3.4 (934.3) Primitive women also unintentionally created their dependence on the male by their admiration and applause for his pugnacity and virility. This exaltation of the warrior elevated the male ego while it equally depressed that of the female and made her more dependent; a military uniform still mightily stirs the feminine emotions.

84:3.5 (934.4) Among the more advanced races, women are not so large or so strong as men. Woman, being the weaker, therefore became the more tactful; she early learned to trade upon her sex charms. She became more alert and conservative than man, though slightly less profound. Man was woman's superior on the battlefield and in the hunt; but at home woman has usually outgeneraled even the most primitive of men.

84:3.6 (934.5) The herdsman looked to his flocks for sustenance, but throughout these pastoral ages woman must still provide the vegetable food. Primitive man shunned the soil; it was altogether too peaceful, too unadventurous. There was also an old superstition that women could raise better plants; they were mothers. In many

수 있다는 미신 개념이 있었는데; 그들이 낡아서 키우는 역할을 하였고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발달하지 못한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이 고기를 요리하고, 여자들은 채소를 요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시 부족들은 행진할 때 여자들이 결코 경기를 비난하지 않으며, 반면에 남자는 구부리고 앉아서 뿌리를 뽑지 않는다.

여자들은 항상 일을 했어야만 하였다; 적어도 현대 시대까지 여자들은 실제적인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남자들은 대개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인간 종족의 전체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다. 여자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가정의 재산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일에 매이지 않고 싸움을 하거나 사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여자들의 첫 번째 해방은 남자들이 땅을 경작하는 일을 동의하였을 때, 그 당시까지는 여자들의 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을 하겠다고 동의하였을 때 도래하였다. 포로들 중에서 남자를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농사를 짓는 노예로 삼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것이 여자들을 해방시켜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일찍 유아들에 대한 젖을 뗄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어머니들은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젠가 덧없이 찾아오는 출산 능력을 잃어버리는 걱정으로부터 풀려난 동시에,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어 들었다. 목축을 하는 사회적 단계 이전에는, 자기 아이들이 네 살 또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들이 돌보곤 하였다.

원시 시대의 전쟁이 크게 줄어들으로써, 성에 따른 노동의 불균형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초를 서는 동안 여전히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야영지 또는 마을은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세워야만 하였지만, 이러한 임무도 개를 길들임으로써 완화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자들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남자들 자신이 농사꾼으로 전환될 때까지 진정으로 별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남자들이 땅을 경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즉시로 농업 기술이 곧 크게 개선되었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남자들은 전쟁과 사냥을 통하여 조직의 가치를 배웠고, 이러한 기법을 산업에 적용하였으며, 그 후에 여자들의 일을 많이 떠맡게 된 후에는 그 동안의 산만하였던 노동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제 4 장. 초기 사회 속에서의 여자들의 지위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시대 동안에든지 여자들의 지위는 결혼이 사회적 제도로서 진화 발전하는 데 대한 적정한 기준인 반면, 결혼 자체의 발전은 인간 문명 진보 정도를 가리키는 상당히

backward tribes today, the men cook the meat, the women the vegetables, and when the primitive tribes of Australia are on the march, the women never attack game, while a man would not stoop to dig a root.

84:3.7 (934.6) Woman has always had to work; at least right up to modern times the female has been a real producer. Man has usually chosen the easier path, and this inequality has existed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the human race. Woman has always been the burden bearer, carrying the family property and tending the children, thus leaving the man's hands free for fighting or hunting.

84:3.8 (934.7) Woman's first liberation came when man consented to till the soil, consented to do what had theretofore been regarded as woman's work. It was a great step forward when male captives were no longer killed but were enslaved as agriculturists. This brought about the liberation of woman so that she could devote more time to homemaking and child culture.

84:3.9 (934.8) The provision of milk for the young led to earlier weaning of babies, hence to the bearing of more children by the mothers thus relieved of their sometimes temporary barrenness, while the use of cow's milk and goat's milk greatly reduced infant mortality. Before the herding stage of society, mothers used to nurse their babies until they were four and five years old.

84:3.10 (934.9) Decreasing primitive warfare greatly lessened the disparity between the division of labor based on sex. But women still had to do the real work while men did picket duty. No camp or village could be left unguarded day or night, but even this task was alleviated by the domestication of the dog. In general, the coming of agriculture has enhanced woman's prestige and social standing; at least this was true up to the time man himself turned agriculturist. And as soon as man addressed himself to the tilling of the soil, there immediately ensued great improvement in methods of agriculture, extending on down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In hunting and war man had learned the value of organization, and he introduced these techniques into industry and later, when taking over much of woman's work, greatly improved on her loose methods of labor.

4. WOMAN'S STATUS IN EARLY SOCIETY

84:4.1 (935.1) Generally speaking, during any age woman's status is a fair criterion of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marriage as a social institution, while the progress of marriage itself is a

정확한 계량기이다.

여인들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적인 모순이었다; 여자는 항상 남자들을 약삭빠르게 조종해 왔으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항상 남자의 강력한 성적 충동을 이용해 왔다.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미묘하게 거래함으로써, 남자를 지배하는 힘을 종종 발휘해 왔는데, 심지어는 비천한 노예로 그에게 소속된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초기 시대의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와 연인 그리고 동반자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의 일부, 종 또는 노예였으며, 나중에는 경제적인 동반자와 노리게 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는 여자에 의한 협동과 선택이라는 요소를 항상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총명한 여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언제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여자들이 자신들의 속박을 완화하려는 노력에서, 기민함에 계속 의존하도록 내내 강제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남자들의 불신과 의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은 서로를 납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었다. 남자는 여자를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의심과 경멸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례한 불신과 심한 매혹이 이상하게 혼합된 존재로 간주하였다. 부족과 종족의 많은 전통들이 고난을 이브,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대표적인 여성들에 관련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죄악을 범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도록 항상 왜곡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여자를 한 때 보편적으로 불신하였던 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지지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가장 소문난 무당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평판을 개선시키지 않았다.

남자들은 오랫동안 여자들을 기묘한 존재로,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여자들에게는 혼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초기 시대 동안에는 여자와의 첫 번째 성 관계에 대한 큰 두려움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처녀로 하여금 사제(司祭)와 첫 번째 성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심지어는 여자의 그림자가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아이를 낳는 일이 여자를 위험스럽고 부정한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이 한 때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부족의 사회관례들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산하는 현장에 남편이 참여하도록 하는 집단들 이외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된 여자를 회피하였고 따로 혼자 있게 하였다. 고대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는, 해산하는 기간 동안 할머니들이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실천 관행에 의해 전문적인 산파술이

reasonably accurate gauge registering the advances of human civilization.

84:4.2 (935.2) Woman's status has always been a social paradox; she has always been a shrewd manager of men; she has always capitalized man's stronger sex urge for her own interests and to her own advancement. By trading subtly upon her sex charms, she has often been able to exercise dominant power over man, even when held by him in abject slavery.

84:4.3 (935.3) Early woman was not to man a friend, sweetheart, lover, and partner but rather a piece of property, a servant or slave and, later on, an economic partner, plaything, and childbearer. Nonetheless, proper and satisfactory sex relations have always involved the element of choice and co-operation by woman, and this has always given intelligent women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ir immediate and personal standing,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sition as a sex. But man's distrust and suspicion were not helped by the fact that women were all along compelled to resort to shrewdness in the effort to alleviate their bondage.

84:4.4 (935.4) The sexes have had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each other. Man found it hard to understand woman, regarding her with a strange mixture of ignorant mistrust and fearful fascination, if not with suspicion and contempt. Many tribal and racial traditions relegate trouble to Eve, Pandora, or some other representative of womankind. These narratives were always distorted so as to make it appear that the woman brought evil upon man; and all this indicates the onetime universal distrust of woman. Among the reasons cited in support of a celibate priesthood, the chief was the baseness of woman. The fact that most supposed witches were women did not improve the olden reputation of the sex.

84:4.5 (935.5) Men have long regarded women as peculiar, even abnormal. They have even believed that women did not have souls; therefore were they denied names. During early times there existed great fear of the first sex relation with a woman; hence it became the custom for a priest to have initial intercourse with a virgin. Even a woman's shadow was thought to be dangerous.

84:4.6 (935.6) Childbearing was once generally looked upon as rendering a woman dangerous and unclean. And many tribal mores decreed that a mother must undergo extensive purification ceremonies subsequent to the birth of a child. Except among those groups where the husband participated in the lying-in, the expectant mother was shunned, left alone. The ancients even avoided having a child born in the house. Finally, the old women were permitted to attend the mother during labor, and this practice gave origin to the profession of midwifery. During labor,

기원되었다. 해산하는 동안에는 분만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련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행하였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귀신의 간섭을 막기 위해 성수(聖水)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여 두 세 시간이면 충분하였다; 피가 섞인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드물었다.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특별히 쌍둥이를 낳다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던 것으로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비교적 발달된 부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를 하늘의 뜻으로 간주하였고; 그러한 산모들은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신체를 드러내는 것과 의복에 관계되는 소위 여인들의 정숙함은, 월경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에서 연유되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중대한 죄, 금기에 대한 위반이었다. 옛날의 사회관례 밑에서는, 사춘기로부터 출산 가능한 기간이 끝나는 나이까지의 모든 여자들은 매 달마다 1주일씩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충분히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였다. 그 기간에 있는 여자가 만지거나 앉거나 또는 누웠던 모든 것들은 “부정(不淨)”한 것으로 여겨졌다. 매 달마다 그 기간이 끝난 소녀들은 그녀의 몸에서 악령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여인의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보다 많은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월경 기간에 있는 여자를 세 가지 큰 오염원인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는데, 다른 두 가지는 돼지와 마늘이었다.

이러한 옛날 통념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 있어도, 그들은 과중한 일을 부과하였던 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하였는데, 적어도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매 달 1주일씩 휴식을 즐기면서 유익한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머지 시간에 자신들의 남자 연관-동료들을 다루기 위한 자신들의 재치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의 격리 기간은 남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그리하여 간접적으로는 인구 증가 억제와 자아-통제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뜻대로 죽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예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한 단계 더 진보되었다. 나중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획득하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또는 관청에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세기에 있어도 어느 정도는 항상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의 통제 아래 틀어박힌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전(全)세계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심지어는 상당히 진보된 민족들 사이에서도, 여자를 보호하려는

scores of foolish things were said and done in an effort to facilitate delivery. It was the custom to sprinkle the newborn with holy water to prevent ghost interference.

84:4.7 (935.7) Among the unmixed tribes, childbirth was comparatively easy, occupying only two or three hours; it is seldom so easy among the mixed races. If a woman died in childbirth, especially during the delivery of twins, she was believed to have been guilty of spirit adultery. Later on, the higher tribes looked upon death in childbirth as the will of heaven; such mothers were regarded as having perished in a noble cause.

84:4.8 (936.1) The so-called modesty of women respecting their clothing and the exposure of the person grew out of the deadly fear of being observed at the time of a menstrual period. To be thus detected was a grievous sin, the violation of a taboo. Under the mores of olden times, every woman, from adolescence to the end of the childbearing period, was subjected to complete family and social quarantine one full week each month. Everything she might touch, sit upon, or lie upon was “defiled.” It was for long the custom to brutally beat a girl after each monthly period in an effort to drive the evil spirit out of her body. But when a woman passed beyond the childbearing age, she was usually treated more considerably, being accorded more rights and privileges. In view of all this it was not strange that women were looked down upon. Even the Greeks held the menstruating woman as one of the three great causes of defilement, the other two being pork and garlic.

84:4.9 (936.2) However foolish these olden notions were, they did some good since they gave overworked females, at least when young, one week each month for welcome rest and profitable meditation. Thus could they sharpen their wits for dealing with their male associates the rest of the time. This quarantine of women also protected men from over-sex indulgence, thereby indirectly contributing to the restriction of population and to the enhancement of self-control.

84:4.10 (936.3) A great advance was made when a man was denied the right to kill his wife at will. Likewise, it was a forward step when a woman could own the wedding gifts. Later, she gained the legal right to own, control, and even dispose of property, but she was long deprived of the right to hold office in either church or state. Woman has always been treated more or less as property, right up to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She has not yet gained world-wide freedom from seclusion under man's control. Even among advanced peoples, man's attempt to protect woman has always been a tacit assertion of

남자의 의도가 자기들의 우월성을 항상 암시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여인들은, 아주 최근에 해방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였고 만족하였다; 보다 나은 또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감히 상상하지 않았다.

제 5 장. 발전하는 사회관례 밑에서의 여자

자아-영속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지만, 자아-유지를 위한 동반자 관계에서는 여자들이 분명하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강제적인 불리한 조건은 진보되는 문명의 깨우친 사회관례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성 인정에 대한 남자들의 증가되는 감각으로 보상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진화하면서, 여성들이 성(性)에 대한 사회 관례를 위반한 결과로부터 더욱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남자의 성에 대한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대한 미약한 인식의 결과로, 오직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의 법칙은 공정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자연은—여자 혼자서 아이 분만의 고통을 겪게 만든다.

성적 평등에 대한 현대의 관념은 확대되는 문명의 아름답고 훌륭한 면이기는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였다; 더 많은 공의(公義)와 평화 그리고 공평성이 우세해진 후에는 여자가 노예 신분과 미천한 상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지 대개 군국주의의 정도와 반대되는 만큼 변화된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권리들을 빼앗은 것은 의식적(意識的)인 것이 아니었고 고의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그것들을 여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진화에 있어서의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에피소드이었다. 추가된 권리들을 여자가 실제로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남자의 의식 태도에는 전혀 상관없이 여자들이 그것들을 취하였다. 끊임없는 문명 진화의 일부분인 그러한 사회적 조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관례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고 있다. 앞서 나가는 사회관례들은 여성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우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였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잔인하게 대하는 부족들은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담-사람들과 노트-사람들은 여자들을 점점 더 많이 인정하였으며, 이주하는 안드-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집단들은 사회에 있어서의 여자들의 지위에 관한 에덴의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여 왔다.

초기 시대의 중국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주변

superiority.

84:4.11 (936.4) But primitive women did not pity themselves as their more recently liberated sisters are wont to do. They were, after all, fairly happy and contented; they did not dare to envision a better or different mode of existence.

5. WOMAN UNDER THE DEVELOPING MORES

84:5.1 (936.5) In self-perpetuation woman is man's equal, but in the partnership of self-maintenance she labors at a decided disadvantage, and this handicap of enforced maternity can only be compensated by the enlightened mores of advancing civilization and by man's increasing sense of acquired fairness.

84:5.2 (936.6) As society evolved, the sex standards rose higher among women because they suffered more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transgression of the sex mores. Man's sex standards are only tardily improving as a result of the sheer sense of that fairness which civilization demands. Nature knows nothing of fairness — makes woman alone suffer the pangs of childbirth.

84:5.3 (936.7) The modern idea of sex equality is beautiful and worthy of an expanding civilization, but it is not found in nature. When might is right, man lords it over woman; when more justice, peace, and fairness prevail, she gradually emerges from slavery and obscurity. Woman's social position has generally varied inversely with the degree of militarism in any nation or age.

84:5.4 (937.1) But man did not consciously nor intentionally seize woman's rights and then gradually and grudgingly give them back to her; all this was an unconscious and unplanned episode of social evolution. When the time really came for woman to enjoy added rights, she got them, and all quite regardless of man's conscious attitude. Slowly but surely the mores change so as to provide for those social adjustments which are a part of the persistent evolution of civilization. The advancing mores slowly provided increasingly better treatment for females; those tribes which persisted in cruelty to them did not survive.

84:5.5 (937.1) The Adamites and Nodites accorded women increased recognition, and those group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migrating Andites have tended to be influenced by the Edenic teachings regarding women's place in society.

84:5.6 (937.1) The early Chinese and the Greeks

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보다 낮게 여자들을 대우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매우 의심하였다. 서방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보다 엄중한 성적 의무들을 남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회관례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에 첨부되어진 바울의 교리들 아래에서 여자에 대한 지위 향상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자의 생활 상태는, 마호멧교에서 여자에게 부과된 색다른 퇴보 아래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다른 몇몇 동방 종교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훨씬 악화된 상태로 살고 있다.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여자를 해방시켰으며; 가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부터 여자를 크게 자유화시킨 것은 현대의 공장(工場)이었다. 남자의 육체적인 능력은 새로운 생활 체제 속에서는 더 이상 극히 중대한 근본적 요소가 아니며; 과학이 생활환경들을 너무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은 더 이상 여자의 능력에 그렇게 우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정의 일에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부터 여자를 해방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실천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정도의 개인적 해방과 성(性) 결정권을 현재 누리고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변경되게 하였다. 한 때는 여자의 가치가 음식을 만드는 능력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발명과 풍부함으로 인하여 여자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우아하고 매력 있는 구체—가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은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위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왔다. 그리고 계시가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까지도 진화에 의해 다시 이룩되어 왔다.

사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다스리는 불공평한 사회관례로부터 깨우친 국민들의 반응은 그 과격성에 있어서 정말로 격심한 변동을 일으켜 왔다. 산업화된 종족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거의 모든 권리들을 받아들이고 왔고 군대 봉사와 같은 많은 책무로부터의 면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모든 안락함이 여자의 해방에 이바지해 왔으며, 여자는 일부일체제를 향한 모든 진보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어 왔다. 사회의 진보적인 진화 과정 안에서, 사회관례의 모든 조절에 있어서 약자들은 항상 불균등한 이익을 얻는다.

한 쌍의 결혼이라는 이상들에 있어서, 여자는 마침내 인정, 존엄성, 독립성, 평등, 그리고 교육을 얻어 냈지만; 여자가 새롭고도 전례가 없는 이러한 모든 성취들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과연 증명할 것인가? 현대의 여인들이 사회적 해방이라는 엄청난 성취와 함께 나태함, 무관심, 불임과 간통으로 응수할 것인가? 20세기인 오늘날, 여자들은 자신들의 오랫동안의 세상 실존에서의 결정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

종족 번식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 진화를 나타냄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화는 여자의

treated women better than did most surrounding peoples. But the Hebrews were exceedingly distrustful of them. In the Occident woman has had a difficult climb under the Pauline doctrines which became attached to Christianity, although Christianity did advance the mores by imposing more stringent sex obligations upon man. Woman's estate is little short of hopeless under the peculiar degradation which attaches to her in Mohammedanism, and she fares even worse under the teachings of several other Oriental religions.

84:5.7 (937.1) Science, not religion, really emancipated woman; it was the modern factory which largely set her free from the confines of the home. Man's physical abilities became no longer a vital essential in the new maintenance mechanism; science so changed the conditions of living that man power was no longer so superior to woman power.

84:5.8 (937.1) These changes have tended toward woman's liberation from domestic slavery and have brought about such a modification of her status that she now enjoys a degree of personal liberty and sex determination that practically equals man's. Once a woman's value consisted in her food-producing ability, but invention and wealth have enabled her to create a new world in which to function — spheres of grace and charm. Thus has industry won its unconscious and unintended fight for woman's social and economic emancipation. And again has evolution succeeded in doing what even revelation failed to accomplish.

84:5.9 (937.1) The reaction of enlightened peoples from the inequitable mores governing woman's place in society has indeed been pendulumlike in its extremeness. Among industrialized races she has received almost all rights and enjoys exemption from many obligations, such as military service. Every easement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has redounded to the liberation of woman, and she has directly benefited from every advance toward monogamy. The weaker always makes disproportionate gains in every adjustment of the mores in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society.

84:5.10 (937.1) In the ideals of pair marriage, woman has finally won recognition, dignity, independence, equality, and education; but will she prove worthy of all this new and unprecedented accomplishment? Will modern woman respond to this great achievement of social liberation with idleness, indifference, barrenness, and infidelity? Today, in the twentieth century, woman is undergoing the crucial test of her long world existence!

84:5.11 (938.1) Woman is man's equal partner in race reproduction, hence just as important in the unfolding of racial evolution; therefore has

권리들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들은 남성의 권리들과 결코 똑같지 않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 위에서 번영할 수 없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권리 위에서 번창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 실존에서의 특유한 구체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구체 안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갖는다. 만약에 여자가 글자 그대로의 남자의 모든 권리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현재 많은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최근에 남자들로부터 획득하였던 기사도(騎士道)와 특별한 배려를 동정심도 감정도 없는 경쟁이 조만간 확실하게 대치될 것이다.

문명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습성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한 번도 없앨 수 없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관례는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바뀔 수 없다. 타고난 모성애는 산업 사회 속에서 남자의 심각한 경쟁상대가 되도록 여자를 해방시키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각자 자기만의 권역,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권역 안에서 언제까지나 최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특별한 구체를 가질 것인데, 그것들은 때때로 서로 중첩되기도 할 것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오직 사회적으로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evolution increasingly worked toward the realization of women's rights. But women's rights are by no means men's rights. Woman cannot thrive on man's rights any more than man can prosper on woman's rights.

84:5.12 (938.2) Each sex has its own distinctive sphere of existence, together with its own rights within that sphere. If woman aspires literally to enjoy all of man's rights, then, sooner or later, pitiless and emotionless competition will certainly replace that chivalry and special consideration which many women now enjoy, and which they have so recently won from men.

84:5.13 (938.3) Civilization never can obliterate the behavior gulf between the sexes. From age to age the mores change, but instinct never. Innate maternal affection will never permit emancipated woman to become man's serious rival in industry. Forever each sex will remain supreme in its own domain, domains determined by biologic differentiation and by mental dissimilarity.

84:5.14 (938.4) Each sex will always have its own special sphere, albeit they will ever and anon overlap. Only socially will men and women compete on equal terms.

제 6 장. 남자와 여자의 동반적 관계

번식에 대한 충동은 자아-영속을 위하여 틀림 없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같이 상호 협동하는 가운데—가정을 세우는 것—함께 남아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모든 성공적인 인간 제도는, 실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작업으로 조절되어온 개인적 관심들의 반목을 포용하고 있으며, 가정을 세우는 일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은, 가정 설립의 기초가 되는데, 매우 자주 자연본능과 공동체의 접촉을 특징짓게 하는, 적대적 협동을 간직한 최고의 현시활동이다. 충동은 필연적인 것이다. 짝을 짓는 일은 선천적인 것이다; 자연본성적이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열정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되는 것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미약한 아버지의 본능과 사회관례가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을 유지한다.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적-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종(種)에서의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변종이다. 그들의 관점들과 전체 삶의 반응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충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용력이 전혀 없다. 이성간의 완벽한 납득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 THE PARTNERSHIP OF MAN AND WOMAN

84:6.1 (938.5) The reproductive urge unfailingly brings men and women together for self-perpetuation but, alone, does not insure their remaining together in mutual co-operation — the founding of a home.

84:6.2 (938.6) Every successful human institution embraces antagonisms of personal interest which have been adjusted to practical working harmony, and homemaking is no exception. Marriage, the basis of home building, is the highest manifestation of that antagonistic co-operation which so often characterizes the contacts of nature and society. The conflict is inevitable. Mating is inherent; it is natural. But marriage is not biologic; it is sociologic. Passion insures that man and woman will come together, but the weaker parental instinct and the social mores hold them together.

84:6.3 (938.7) Male and female are, practically regarded, two distinct varieties of the same species living in close and intimate association. Their viewpoints and entire life reactions are essentially different; they are wholly incapable of full and real comprehension of each other. Complete understanding between the sexes is not attainable.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욱 많은 직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는 좀더 적게 논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여자는 항상 도덕적 기준을-떠맡아 나르는 자였으며 그리고 인류의 영적 영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여전히 조용하게 운명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본성, 반응, 관점, 사고(思考)에서의 차이점들은, 염려를 일으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우주 창조체들의 많은 계층이 개인성 현시활동의 이원적(二元的) 위상으로 창조된다. 필사자들과 물질아들들 그리고 아(亞)중간자들 사이에서는 이 차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된다; 세라핌천사, 케루빔, 그리고 모론시아 동행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혹은 적극적 그리고 부정적 즉 내향적(內向的)인 것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한 이원적(二元的) 관계적-연합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체계 속에 있는 어떤 삼원적(三元的) 관계적-연합이 하는 것처럼, 융통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선천적 한계들을 극복한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필사자 생애 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론시아적 생애와 영적 생애 속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관점의 차이들은 첫 번째 삶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우주에서의 상승과 초우주에서의 상승 과정 전체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에서도, 한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었던 그 순례자들은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서로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최종의 무리단들 속에서도, 창조체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개인성 경향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변화될 것이다; 인류의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서로 다른 이종(異種)들은 서로에게 호기심을 주고, 자극을 주고, 용기를 주고 협조하는 일을 항상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복잡한 우주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지각색의 조화우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일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협동하게 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충분히 납득하기를 희망할 수는 결코 없는 반면, 그들은 효과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그리고 협동이 종종 개인적으로 다소간의 반목을 일으키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결혼은 성(性)의 차이를 완화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동시에 문명의 지속과 인종(人種)의 재생산을 가져다준다.

결혼은 모든 인간적 제도들의 모체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설립과 유지를 직접적으로 이룩하기 때문이며, 가정은 사회의 구조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자아-유지 기능구조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명의 사회관계 아래에서 종족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형태의 자아-충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가정은 사람이 이룩한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업적인데,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를 일으키며, 그것을

84:6.4 (938.8) Women seem to have more intuition than men, but they also appear to be somewhat less logical. Woman, however, has always been the moral standard-bearer and the spiritual leader of mankind.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still fraternizes with destiny.

84:6.5 (938.9) The differences of nature, reaction, viewpoint, and thinking between men and women, far from occasioning concern, should be regarded as highly beneficial to mankind,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Many orders of universe creatures are created in dual phases of personality manifestation. Among mortals, Material Sons, and midsoniters, this difference is described as male and female; among seraphim, cherubim, and Morontia Companions, it has been denominated positive or aggressive and negative or retiring. Such dual associations greatly multiply versatility and overcome inherent limitations, even as do certain triune associations in the Paradise-Havona system.

84:6.6 (939.1) Men and women need each other in their morontial and spiritual as well as in their mortal careers. The differences in viewpoint between male and female persist even beyond the first life and throughout the local and superuniverse ascensions. And even in Havona, the pilgrims who were once men and women will still be aiding each other in the Paradise ascent. Never, even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will the creature metamorphose so far as to obliterate the personality trends that humans call male and female; always will these two basic variations of humankind continue to intrigue, stimulate, encourage, and assist each other; always will they be mutually dependent on co-operation in the solution of perplexing universe problems and in the overcoming of manifold cosmic difficulties.

84:6.7 (939.2) While the sexes never can hope fully to understand each other, they are effectively complementary, and though co-operation is often more or less personally antagonistic, it is capable of maintaining and reproducing society. Marriage is an institution designed to compose sex differences, meanwhile effecting the continuation of civilization and insuring the reproduction of the race.

84:6.8 (939.3) Marriage is the mother of all human institutions, for it leads directly to home founding and home maintenance, which is the structural basis of society. The family is vitally linked to the mechanism of self-maintenance; it is the sole hope of race perpetuation under the mores of civilization, while at the same time it most effectively provides certain highly satisfactory forms of self-gratification. The family is man's greatest purely human achievement, combining as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와 병합하고 있다.

it does the evolution of the biologic relations of male and female with the social relations of husband and wife.

제 7 장. 결혼생활의 이상적인 원리들

남성과 여성이 짝을 이루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자녀들은 자연적인 결과이며, 그리하여 가정은 자동적으로 실존하게 된다. 종족 또는 국가의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의 사회도 존재한다. 유대 민족들과 중국 민족들의 뿌리 깊은 문화적 안정성은 그들의 가정 집단들의 위력안에 놓여 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은 결혼과 원시적인 가정생활을 증진시키는 일에 여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는 집단이 되도록 협력하였다. 남자는 후대의 사회관례들과 사회적 풍습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뿐이다; 결혼과 가정을 설립하는 일에 흥미를 갖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것은 성(性) 행동이 그에게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적인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며 언제나 사회관례들에 의해서 규제되어 왔다. 사회관례들(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은, 재산과 자부심 그리고 기사도 마음과 함께, 결혼과 가정 제도를 안정화시킨다. 사회관례가 동요될 때마다, 가정-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결혼은 이제 소유 단계를 탈피하여 개인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였으며,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복종하였다. 그 장점들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이제는, 여자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관례들이 결혼-가정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창발하고 있다:

1. 종교의 새로운 역할—부모의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가르침, 조화우주 시민들을 낳는다는 관념, 출산의 혜택에 대한 확대된 남독—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림.

2. 과학의 새로운 역할—출산은 점점 더 자발적으로, 사람의 통제를 따르게 되었다. 옛날에는 인식 부족 때문에 그것을 위한 모든 욕망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들의 출생이 보장되었다.

3. 쾌락을 주는 매력들의 새로운 역할—이것이 인종적 생존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하였다; 옛날 사람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죽였지만; 현대인들은 그러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4. 아버지의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아버지의 본능이 다음 세대에서의 장래의 부모들, 자녀들의 출산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개별존재들을, 인종 번식의 흐름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7. THE IDEALS OF FAMILY LIFE

84:7.1 (939.4) Sex mating is instinctive, children are the natural result, and the family thus automatically comes into existence. As are the families of the race or nation, so is its society. If the families are good, the society is likewise good. The great cultural stability of the Jewish and of the Chinese peoples lies in the strength of their family groups.

84:7.2 (939.5) Woman's instinct to love and care for children conspired to make her the interested party in promoting marriage and primitive family life. Man was only forced into home building by the pressure of the later mores and social conventions; he was slow to take an interest in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and home because the sex act imposes no biologic consequences upon him.

84:7.3 (939.6) Sex association is natural, but marriage is social and has always been regulated by the mores. The mores (religious, moral, and ethical), together with property, pride, and chivalry, stabilize the institutions of marriage and family. Whenever the mores fluctuate, there is fluctuation in the stability of the home-marriage institution. Marriage is now passing out of the property stage into the personal era. Formerly man protected woman because she was his chattel, and she obeyed for the same reason. Regardless of its merits this system did provide stability. Now, woman is no longer regarded as property, and new mores are emerging designed to stabilize the marriage-home institution:

84:7.4 (939.7) 1. The new role of religion — the teaching that parental experience is essential, the idea of procreating cosmic citizens, the enlarged understanding of the privilege of procreation — giving sons to the Father.

84:7.5 (940.1) 2. The new role of science — procre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voluntary, subject to man's control. In ancient times lack of understanding insured the appearance of children in the absence of all desire therefor.

84:7.6 (940.2) 3. The new function of pleasure lures — this introduces a new factor into racial survival; ancient man exposed undesired children to die; moderns refuse to bear them.

84:7.7 (940.3) 4. The enhancement of parental instinct — each generation now tends to eliminate from the reproductive stream of the race those individuals in whom parental instinct is insufficiently strong to insure the procreation of children, the prospective parents of the next generation.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의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체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약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안돈과 그의 직계 후손들이 가졌던 일부일처제 실천 관행은 오래 전부터 포기되어 왔었다. 아무튼, 가정생활은 낯-사람들과 그 후의 아담-사람들 시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동산에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가족들이 원예가가 되는, 에덴의 이상적(理想的)인 원리는 유란시아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었다.

초기의 가정은 노예들을 포함하여, 관계된 작업 집단을 포용하였고, 모두가 한 거처에서 살았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서 가깝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자는 항상 개별적인 가족을 원하였고, 결국에는 자기 방식대로 했다.

자손에 대한 사랑은 거의 우주적인 것이고 생존에 있어서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의 권리가 희생되었다; 에스키모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이를 물로 씻는 대신에 혀로 핥아준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만 먹여주고 돌보아 주었을 뿐이다;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라나자마자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인간적 관계적-연합들은 생물학적인 애정만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동물들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한다; 사람—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자녀들도 사랑한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녀들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부모들의 기쁨이 커지며; 그리하여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고도 더 고상하게 실현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대의 민족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가족들이 반드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요구되었다:

1.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2. 그들은 노후대책이었다.
3. 딸들은 곧 팔려나가게 되어 있었다.
4. 가족의 자부심이 이름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5. 아들들은 방어와 보호를 잘 제공하였다.
6.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요구하였다.

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들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최악의 불행으로 여긴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들들이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영적인 나라에서 귀신이 진보하는 일에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드리기를 바

84:7.8 (940.4) But the home as an institution, a partnership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dates more specifically from the days of Dalamatia,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e monogamous practices of Andon and his immediate descendants having been abandoned long before. Family life, however, was not much to boast of before the days of the Nodites and the later Adamites. Adam and Eve exerted a lasting influence on all manki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men and women were observed working side by side in the Garden. The Edenic ideal, the whole family as gardeners, was a new idea on Urantia.

84:7.9 (940.5) The early family embraced a related working group, including the slaves, all living in one dwelling. Marriage and family life have not always been identical but have of necessity been closely associated. Woman always wanted the individual family, and eventually she had her way.

84:7.10 (940.6) Love of offspring is almost universal and is of distinct survival value. The ancients always sacrificed the mother's interests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an Eskimo mother even yet licks her baby in lieu of washing. But primitive mothers only nourished and cared for their children when very young; like the animals, they discarded them as soon as they grew up. Enduring and continuous human associations have never been founded on biologic affection alone. The animals love their children; man — civilized man — loves his children's children. The higher the civilization, the greater the joy of parents in the children's advancement and success; thus the new and higher realization of *name* pride comes into existence.

84:7.11 (940.7) The large families among ancient peoples were not necessarily affectional. Many children were desired because:

- 84:7.12 (940.8) 1. They were valuable as laborers.
- 84:7.13 (940.9) 2. They were old-age insurance.
- 84:7.14 (940.10) 3. Daughters were salable.
- 84:7.15 (940.11) 4. Family pride required extension of name.
- 84:7.16 (940.12) 5. Sons afforded protection and defense.
- 84:7.17 (940.13) 6. Ghost fear produced a dread of being alone.
- 84:7.18 (940.14) 7. Certain religions required offspring.

84:7.19 (940.15) Ancestor worshipers view the failure to have sons as the supreme calamity for all time and eternity. They desire above all else to have sons to officiate in the post-mortem feasts, to offer the required sacrifices for the ghost's progress

란다.

고대의 원시인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단련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는, 동물들에게 그러했던 것 같이, 불순종이 실패나 죽음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어리석은 행위의 자연적인 결과로부터 어린아이를 보호한 것은 문명의 보호 작용이고, 그것은 현대의 불복종에 그렇게 많도록 기여하고 있다.

에스키모 아이들은 거의 단련과 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는데 그것은 오직 그들이 천부적으로 유순한 어린 동물들과 같기 때문이다;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의 자녀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유순하다. 그러나 안드-사람 유전자를 가진 인종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조용한 편이 아니며; 더 많은 단련과 억제 요구되는, 더욱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이다. 아이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의 현대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1. 심한 종족 혼합.

2. 인공적이고 피상적인 교육.

3. 부모들을 모방함으로써 문화를 획득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서 사라짐—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가족 단련에 대한 옛 관념은 생물학적인 것이었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존재들의 창조자라는 실현에서 나와서 성장되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진보하는 이상적(理想的) 원리들은, 어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정한 권리들을 수여하는 대신에 인간 실존의 최극 의무를 의미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도록 인도되고 있다.

문명은 모든 의무들을 부모들이 맡고, 자녀는 모든 권리들을 갖게 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기 부모들에 대한 자녀의 존중은, 부모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생각 속에 내포된 의무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가운데 충실하게 보이는 보살핌과 훈련과 애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참된 부모는, 현명한 자녀가 이해하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계속적인 봉사-사명활동에 여념이 없다.

현재와 같은 산업 시대와 도시 시대에서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계통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점점 더 비용이 드는 반면, 예전에는 하나의 자산이 되곤 하였던 자녀들은 경제적인 부채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성은,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자라나고 있음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나 또는 교회에 떠맡기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문명에서의 복지와 발전에 자멸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결혼은, 자녀들과 그에 따르는 가정생활과 함께, 인간 자연본성에서 가장 고상한 잠재를 자극하는 동시에, 필사자 개인성에서의 이들 자극적인 속성들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큰길을 제공한다. 가족은 인간 종족들의 생물학적 영속을 제공한다.

through spiritland.

84:7.20 (941.1) Among ancient savages, discipline of children was begun very early; and the child early realized that disobedience meant failure or even death just as it did to the animals. It is civilization's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the natural consequences of foolish conduct that contributes so much to modern insubordination.

84:7.21 (941.2) Eskimo children thrive on so little discipline and correction simply because they are naturally docile little animals; the children of both the red and the yellow men are almost equally tractable. But in races containing Andite inheritance, children are not so placid; these more imaginative and adventurous youths require more training and discipline. Modern problems of child culture are rendered increasingly difficult by:

84:7.22 (941.3) 1. The large degree of race mixture.

84:7.23 (941.4) 2. Artificial and superficial education.

84:7.24 (941.5) 3. Inability of the child to gain culture by imitating parents — the parents are absent from the family picture so much of the time.

84:7.25 (941.6) The olden ideas of family discipline were biologic, growing out of the realization that parents were creators of the child's being. The advancing ideals of family life are leading to the concept that bringing a child into the world, instead of conferring certain parental rights, entails the supreme responsibility of human existence.

84:7.26 (941.7) Civilization regards the parents as assuming all duties, the child as having all the rights. Respect of the child for his parents arises, not in knowledge of the obligation implied in parental procreation, but naturally grows as a result of the care, training, and affection which are lovingly displayed in assisting the child to win the battle of life. The true parent is engaged in a continuous service-ministry which the wise child come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84:7.27 (941.8) In the present industrial and urban era the marriage institution is evolving along new economic lines. Family life has become more and more costly, while children, who used to be an asset, have become economic liabilities. But the security of civilization itself still rests on the growing willingness of one generation to invest in the welfare of the nex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ny attempt to shift parental responsibility to state or church will prove suicidal to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civilization.

84:7.28 (941.9) Marriage, with children and consequent family life, is stimulative of the highest potentials in human nature and simultaneously provides the ideal avenue for the expression of these quickened attributes of mortal personality.

가정은, 핏줄로 이어진 형제신분의 윤리가, 자라나는 자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자연스런 사회 무대이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형제신분을 실현시키는 데 매우 근본적인 요소인 인내와 이타심과 관용과 용서에 대한 수업을 부모들과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형제우애관계의 기본 단위이다.

만일 문명화된 종족들이 안드-사람들의 가정-협의체 실천 관행을 향하여 더욱 일반적으로 되돌아간다면,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들은 가부장적 또는 독재적인 형태의 가족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친밀하였고 협조적이었는데,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제안과 규정을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토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통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형제우애관계를 가졌다.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식으로서의 애정과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우애적 헌신에 의해서 둘 모두 증강된다.

가정생활은 참된 도덕의 선조, 의무에 대한 충성심 인식의 조상이다. 가정생활의 강제적인 관계적-연합은 다양한 다른 개인성들에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을 통하여 개인성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자라도록 자극을 준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된 가정—훌륭한 가정—은 창조자의 자기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아버지의 후대 창조자들에게 현시하는 동시에, 그러한 참된 부모들은 모든 우주적 자녀들에 대한 파라다이스 부모의 사랑을 점점 더 높게 보여주는 긴 과정의 첫 단계를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낸다.

제 8 장. 자아-충족의 위험성

가정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자아-충족, 쾌락에 대한 현대적인 열광의 물결이 위협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1차적인 유익은 경제적인 것이었고; 성적 이끌림은 2차적인 것이 되곤 하였다. 자아-유지에 기초를 둔 결혼은, 자아-영속을 이룩하였고, 자아-충족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들 중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삶을 위한 큰 동기들 세 가지 모두를 포용하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도이다.

기원적으로, 재산은 자아-유지의 기본 제도였던 반면, 결혼은 자아-영속의 독특한 제도로써 가능하였다. 흡족한 음식과 놀이 그리고 유머는, 주기적인 성적 탐닉과 함께 자아-충족의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하는 사회관계가 자아-충족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제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 제도가 이러한 쾌락 추구로 너무나 완벽하게 물들어 있는 것은, 만족스러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기법을 진화시키지 못한 이러한 실패에 기인한다. 재산 축적은 모든 형태의 자아-충족을 증강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반면, 결혼은 오직 쾌락을 위한 수

The family provides for the biologic perpetuation of the human species. The home is the natural social arena wherein the ethics of blood brotherhood may be grasped by the growing children. The family is the fundamental unit of fraternity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learn those lessons of patience, altruism, tolerance, and forbearance which are so essential to the realization of brotherhood among all men.

84:7.29 (941.10) Human society would be greatly improved if the civilized races would more generally return to the family-council practices of the Andites. They did not maintain the patriarchal or autocratic form of family government. They were very brotherly and associative, freely and frankly discussing every proposal and regulation of a family nature. They were ideally fraternal in all their family government. In an ideal family filial and parental affection are both augmented by fraternal devotion.

84:7.30 (942.1) Family life is the progenitor of true morality, the ancestor of the consciousness of loyalty to duty. The enforced associations of family life stabilize personality and stimulate its growth through the compulsion of necessitous adjustment to other and diverse personalities. But even more, a true family — a good family — reveals to the parental procreators the attitude of the Creator to his children, while at the same time such true parents portray to their children the first of a long series of ascending disclosures of the love of the Paradise parent of all universe children.

8. DANGERS OF SELF-GRATIFICATION

84:8.1 (942.2) The great threat against family life is the menacing rising tide of self-gratification, the modern pleasure mania. The prime incentive to marriage used to be economic; sex attraction was secondary. Marriage, founded on self-maintenance, led to self-perpetuation and concomitantly provided one of the most desirable forms of self-gratification. It is the only institution of human society which embraces all three of the great incentives for living.

84:8.2 (942.3) Originally, property was the basic institution of self-maintenance, while marriage functioned as the unique institution of self-perpetuation. Although food satisfaction, play, and humor, along with periodic sex indulgence, were means of self-gratification, it remains a fact that the evolving mores have failed to build any distinct institution of self-gratification. And it is due to this failure to evolve specialized techniques of pleasurable enjoyment that all human institutions are so completely shot through with this pleasure pursuit. Property accumulation is becoming an

단으로만 간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종, 널리 퍼진 이러한 즐거움에 대한 열광이 이제는, 가족생활의 사회적 진화 제도인, 가정을 겨냥해 오는 가장 큰 위협을 이루고 있다.

보라색 인종은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오직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징을 인류의 체험 속에—유머 감각과 결부된 놀이 본능—도입하였다. 그것은 산기들과 안돈-사람들 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아담의-혈통은 이러한 원시적 성향을 기쁨의 잠재, 자아-충족의 새롭고 영화롭게 된 형태에 이르도록 향상시켰다.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제외시킨다면, 자아-충족의 기본적인 유형은 성(性) 만족이며, 이러한 형태의 감각적 쾌락은 산기들과 안드-사람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안드-사람 이후 종족들의 불안감, 호기심, 모험심, 그리고 쾌락-포기 특징의 배합 속에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혼(魂)의 열망은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쾌락 추구에 의해서 증강되지 않는다. 너희는 예술, 색감, 소리, 박자, 음악의 자원들과, 몸을 장식하는 자원들을 소모시킴으로써 영을 살찌게 하거나 혼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에 공헌할 수 없으며; 자부심과 경쟁심은 다음 세대들의 생존을 위한 본질특성을 증진시켜주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향상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은 모두 휴식을 즐기며, 복귀 감독자들의 봉사를 즐긴다. 건전한 기분전환을 획득하고 기분을 드높여주는 놀이에 참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건전한 것이다; 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권태감을 막아주는 모든 취미들과 오락과 휴식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은 보람 있는 것들이다. 경쟁적인 경기들, 이야기하기,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자아-충족의 형태들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낼 때, 거의 100만 년 동안, 사람은 오직 자기 음식을 재속에 넣어두는 방법에 의해서만 소금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즐기게 내버려두어라; 인간 종족들이 무수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을 수 있게 하라; 진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합리적인 자아-충족, 오랫동안 향상되어 온 생물학적 투쟁의 결실들을 탐구하게 하라. 사람은 지금-현재의 즐거움들과 쾌락들의 일부를 잘 획득하였다. 그러나 너희 운명의 목표를 잘 고려해 보아라! 쾌락들은, 만약에 그것들이 자아-유지의 제도가 되어 오고 있는 소유물을 파괴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자아-충족들은, 만약에 그것들이 가정생활의 타락, 결혼의 붕괴와 가정—사람이 획득한 최극의 진화적 성취이며 문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말로 치명

instrument for augmenting all forms of self-gratification, while marriage is often viewed only as a means of pleasure. And this overindulgence, this widely spread pleasure mania, now constitutes the greatest threat that has ever been leveled at the social evolutionary institution of family life, the home.

84:8.3 (942.4) The violet race introduced a new and only imperfectly realized characteristic into the experience of humankind — the play instinct coupled with the sense of humor. It was there in measure in the Sangiks and Andonites, but the Adamic strain elevated this primitive propensity into the *potential of pleasure*, a new and glorified form of self-gratification. The basic type of self-gratification, aside from appeasing hunger, is sex gratification, and this form of sensual pleasure was enormously heightened by the blending of the Sangiks and the Andites.

84:8.4 (942.5) There is real danger in the combination of restlessness, curiosity, adventure, and pleasure-abandon characteristic of the post-Andite races. The hunger of the soul cannot be satisfied with physical pleasures; the love of home and children is not augmented by the unwise pursuit of pleasure. Though you exhaust the resources of art, color, sound, rhythm, music, and adornment of person, you cannot hope thereby to elevate the soul or to nourish the spirit. Vanity and fashion cannot minister to home building and child culture; pride and rivalry are powerless to enhance the survival qualities of succeeding generations.

84:8.5 (942.6) Advancing celestial beings all enjoy rest and the ministry of the reversion directors. All efforts to obtain wholesome diversion and to engage in uplifting play are sound; refreshing sleep, rest, recreation, and all pastimes which prevent the boredom of monotony are worth while. Competitive games, storytelling, and even the taste of good food may serve as forms of self-gratification. (When you use salt to savor food, pause to consider that, for almost a million years, man could obtain salt only by dipping his food in ashes.)

84:8.6 (943.1) Let man enjoy himself; let the human race find pleasure in a thousand and one ways; let evolutionary mankind explore all forms of legitimate self-gratification, the fruits of the long upward biologic struggle. Man has well earned some of his present-day joys and pleasures. But look you well to the goal of destiny! Pleasures are indeed suicidal if they succeed in destroying property, which has become the institution of self-maintenance; and self-gratifications have indeed cost a fatal price if they bring about the collapse of marriage, the decadence of family life, and the destruction of the home — man's supreme evolutionary acquirement and civilization's only

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hope of survival.

[유란시아에 파견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84:8.7 (943.2)}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 85 편 경배의 기원

⇨ 084

유랜시아 책

08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5 편 경배의 기원

섹션

소개

- 제 1 장. 돌과 언덕에 대한 경배
- 제 2 장. 식물과 나무들에 대한 경배
- 제 3 장. 동물들에 대한 경배
- 제 4 장. 자연요소에 대한 경배
- 제 5 장. 하늘 몸체에 대한 경배
- 제 6 장. 사람에 대한 경배
- 제 7 장. 경배와 지혜에 대한 보조자

소개

도덕적인 관계적-연합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영향을 제외한다면, 원시 종교는 생물학적인 기원, 자연적인 진화로서 발전하였다. 고등 동물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환상이 없고 따라서 종교가 없다.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서부터 그리고 환상의 수단에 의해서 원시 종교들을 창조하였다.

인간 종족들의 진화 과정에서, 원시적인 혼신시활동 속에서의 경배는 사람의 마음이 종교라고 불릴만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훨씬 전에 나타났다. 초기의 종교는 자연본성에서 전적으로 지능적인 것이었으며 관계적-연합된 관념들의 환경에 전적으로 기초를 두었다. 경배의 대상은 모든 것이 암시적인 것이었다; 그것들은 손이 미칠 수 있는 자연의 사물 또는 단순-마음을 소유한 원시 유란시아인 들의 평범한 체험 속에서 크게 돋보이는 자연의 사물들로 구성되었다.

종교가 일단 자연 경배의 수준을 넘어서 진화하고 나서, 그것이 영적인 기원의 뿌리를 획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 경배가 발달하자, 사람의 개념

PAPER 85

THE ORIGINS OF WORSHIP

SECTIONS

Introduction

- 1. Worship of Stones and Hills
- 2. Worship of Plants and Trees
- 3. The Worship of Animals
- 4. Worship of the Elements
- 5.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 6. Worship of Man
- 7.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INTRODUCTION

85:0.1 (944.1) PRIMITIVE religion had a biologic origin, a natural evolutionary development, aside from moral associations and apart from all spiritual influences. The higher animals have fears but no illusions, hence no religion. Man creates his primitive religions out of his fears and by means of his illusions.

85:0.2 (944.2) In the evolution of the human species, worship in its primitive manifestations appears long before the mind of man is capable of formulating the more complex concepts of life now and in the hereafter which deserve to be called religion. Early religion was wholly intellectual in nature and was entirely predicated on associational circumstances. The objects of worship were altogether suggestive; they consisted of the things of nature which were close at hand, or which loomed large in the commonplace experience of the simple-minded primitive Urantians.

85:0.3 (944.3) When religion once evolved beyond nature worship, it acquired roots of spirit origin but was nevertheless always condition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s nature worship developed, man's

은 초(超)필사 세계에서 노동의 분업을 상상하였다; 그것들은 호수, 나무, 폭포, 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른 보통의 지상의 현상에 대한 자연 영들이 있었다.

필사 사람은 한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배하였다. 또한 그는 하늘 위에 그리고 땅의 표면 밑에 있을 것으로 상상되는 모든 것들도 경배하였다. 원시인은 힘이 보이는 모든 현시활동들을 두려워하였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경배하였다. 폭풍,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불, 열, 추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적 힘들에 대한 관찰은 사람의 확대되는 마음에 엄청나게 인상(印象)을 주었다. 아직도 여전히 삶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하느님의 활동” 그리고 “신비한 천의(天意)의 섭리들”로 풀이되고 있다.

제 1 장. 돌과 언덕에 대한 경배

진화하는 사람의 최초의 경배 대상은 돌이었다. 오늘날 남부 인도에 사는 카테리 인종은 북부 인도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돌을 경배하고 있다. 아굽이 돌 위에서 잔 것은 그가 그것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신성시하기까지 하였다. 라헬은 신성시되는 여러 개의 돌들을 자기 천막 속에 간직하였다.

돌은 경작하는 땅이나 또는 목초지의 표면에 갑자기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초기 시대의 사람에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땅을 갈아엎은 결과 또는 침식 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돌들이 초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것들이 종종 동물의 형태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동물들의 얼굴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도 닮은, 산에 있는 수많은 돌들의 형태였다. 그러나 가장 심한 영향을 준 것은, 대기 중에서 장관을 이루는 불꽃을 내면서 어떤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것이 원시인들에게 목격되었던 운석(隕石)들이었다. 유성은 원시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타오르는 광선들이 그 방향을 따라 어떤 영을 지구에 운반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쉽게 믿었다.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을 경배하게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들이 나중에 그 운석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돌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확대시켜 주었다. 벵갈 지역에서는 서기 1880년에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대의 모든 씨족들과 부족은 신성시하는 돌들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현대 민족들도 특정한 유형의 돌들—그들의 보석—을 어느 정도 숭배하고 있음을 현시한다. 인도에서는 다섯 개의 돌들로 이루어진 한 묶음을; 그리스에서는 30개로 이루어진 군(群)을 존경하였다; 적색 인종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대개 돌들로 원을 그린 형태이었다. 로마인들은 주피터에게 빌 때에는 항상 돌을

concepts envisioned a division of labor in the supermortal world; there were nature spirits for lakes, trees, waterfalls, rain, and hundreds of other ordinary terrestrial phenomena.

85:0.4 (944.4) At one time or another mortal man has worshiped everything on the face of the earth, including himself. He has also worshiped about everything imaginable in the sky and be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Primitive man feared all manifestations of power; he worshiped every natural phenomenon he could not comprehend. The observation of powerful natural forces, such as storms, floods, earthquakes, landslides, volcanoes, fire, heat, and cold, greatly impressed the expanding mind of man. The inexplicable things of life are still termed “acts of God” and “mysterious dispensations of Providence.”

1. WORSHIP OF STONES AND HILLS

85:1.1 (944.5) The first object to be worshiped by evolving man was a stone. Today the Kateri people of southern India still worship a stone, as do numerous tribes in northern India. Jacob slept on a stone because he venerated it; he even anointed it. Rachel concealed a number of sacred stones in her tent.

85:1.2 (944.6) Stones first impressed early man as being out of the ordinary becaus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would so suddenly appear on the surface of a cultivated field or pasture. Men failed to take into account either erosion or the results of the overturning of soil. Stones also greatly impressed early peoples because of their frequent resemblance to animals. The attention of civilized man is arrested by numerous stone formations in the mountains which so much resemble the faces of animals and even men. But the most profound influence was exerted by meteoric stones which primitive humans beheld hurtling through the atmosphere in flaming grandeur. The shooting star was awesome to early man, and he easily believed that such blazing streaks marked the passage of a spirit on its way to earth. No wonder men were led to worship such phenomena, especially when they subsequently discovered the meteors. And this led to greater reverence for all other stones. In Bengal many worship a meteor which fell to earth in A.D. 1880.

85:1.3 (945.1) All ancient clans and tribes had their sacred stones, and most modern peoples manifest a degree of veneration for certain types of stones — their jewels. A group of five stones was revered in India; in Greece it was a cluster of thirty; among the red men it was usually a circle of stones. The Romans always threw a stone into the air when invoking Jupiter. In India even to this

공중으로 던졌다. 인도에서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돌이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이 율법의 부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세로서 위반자는 법정으로 끌려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필사자들은 존경을 바치는 예식의 대상으로, 신(神)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물들은 많은 경우에, 경배의 실제 대상의 단순한 상징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돌에 있는 구멍들을 특별하게 여겼다. 그렇게 구멍이 많은 돌은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고 여겼다. 귀는 돌을 달고 다니려고 구멍을 낸 것이 아니었고, 구멍이 뚫린 채로 계속 있게 하려고 돌을 집어넣었다.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미신 믿는 사람들은 동전에 구멍을 낸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주물인 돌 앞에서 더욱 더 야단법석을 한다. 뒤떨어진 모든 부족들과 민족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돌이 미신 믿는 숭배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돌을 경배하는 것은 지금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묘비는 죽은 동료 인간들의 영과 귀신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돌에 새겨진 형상과 우상으로서의 생존한다는 상징이다.

언덕을 경배하는 것은 돌에 대한 경배 이후에 발생되었으며, 숭배 대상이 된 최초의 언덕은 커다란 돌 형성층이었다. 하느님들이 산 속에 거주한다고 믿는 것이 이속고 관습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리하여 높이 솟은 땅은 이러한 추가적인 이유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산들은 특정한 하느님들과 연관이 되었고 그리하여 신성하게 여겨졌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원주민들은 동굴이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악한 영들과 마귀들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산들은 선한 영들과 신(神)들로 나중에 진화되는 개념들과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제 2 장. 식물과 나무들에 대한 경배

식물들은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고, 나중에는 취하게 하는 액체들이 그것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식물을 경배했다. 원시인은 취하는 것은 사람을 신성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한 체험은 진귀하고 성스러운 무엇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알코올이 “영(靈)”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사람은 싹이 돋아나는 낱알을 두려움과 미신 믿는 경외감으로 바라보았다. 싹이 돋아 나오는 낱알로부터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 내고 그 위에 종교적인 신념의 근거를 두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무를 경배하는 예배종파들은 가장 오래된 종교 집단들에 속한다. 초기의 모든 결혼식들은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으며, 여인들은 아이들을 갖고 싶을 때, 튼튼한 참나무를 다정하게 껴안고 숲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많은 식물들과 나무들은, 그것들의 실제적인 또는 상상에서의 치유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숭배의 대

day a stone can be used as a witness. In some regions a stone may be employed as a talisman of the law, and by its prestige an offender can be haled into court. But simple mortals do not always identify Deity with an object of reverent ceremony. Such fetishes are many times mere symbols of the real object of worship.

85:1.4 (945.2) The ancients had a peculiar regard for holes in stones. Such porous rocks were supposed to be unusually efficacious in curing diseases. Ears were not perforated to carry stones, but the stones were put in to keep the ear holes open. Even in modern times superstitious persons make holes in coins. In Africa the natives make much ado over their fetish stones. In fact, among all backward tribes and peoples stones are still held in superstitious veneration. Stone worship is even now widespread over the world. The tombstone is a surviving symbol of images and idols which were carved in stone in connection with beliefs in ghosts and the spirits of departed fellow beings.

85:1.5 (945.3) Hill worship followed stone worship, and the first hills to be venerated were large stone formations. It presently became the custom to believe that the gods inhabited the mountains, so that high elevations of land were worshiped for this additional reason. As time passed, certain mountains were associated with certain gods and therefore became holy. The ignorant and superstitious aborigines believed that caves led to the underworld, with its evil spirits and demons, in contrast with the mountains, which were identified with the later evolving concepts of good spirits and deities.

2. WORSHIP OF PLANTS AND TREES

85:2.1 (945.4) Plants were first feared and then worshiped because of the intoxicating liquors which were derived therefrom. Primitive man believed that intoxication rendered one divine. There was supposed to be something unusual and sacred about such an experience. Even in modern times alcohol is known as “spirits.”

85:2.2 (945.5) Early man looked upon sprouting grain with dread and superstitious awe. The Apostle Paul was not the first to draw profound spiritual lessons from, and predicate religious beliefs on, the sprouting grain.

85:2.3 (945.6) The cults of tree worship are among the oldest religious groups. All early marriages were held under the trees, and when women desired children, they would sometimes be found out in the forest affectionately embracing a sturdy oak. Many plants and trees were venerated because of their real or fancied medicinal powers.

상이 되었다. 야만인들은 모든 화학 작용들이 초자연적인 힘의 직접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믿었다.

나무의 영들에 관한 관념은 부족들과 종족들마다 크게 차이가 났다. 어떤 나무들 속에는 인정 많은 혼들이 들어있고, 또 어떤 나무들 속에는 현혹하는 그리고 사악한 혼들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친절한 혼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다. 스위스 사람들은 나무들 속에 교활한 혼들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을 의심하였다. 인도와 동부 러시아의 주민들은 나무의 혼들이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였다. 파타고니아 주민들은 초기의 썸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나무들을 경배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나무 경배를 멈춘 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작은 숲들 속에서 자기들의 다양한 신(神)들을 숭배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전 지역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예배종파가 한 때 존재하였다.

점을 치는 나무 막대기로 땅 밑에 있는 물 또는 귀중한 금속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예배종파들의 잔재이다. 5월 축제의 기둥,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두드리는 미신적인 실천 관행들은, 나무에 대한 경배와, 훗날의 나무 예배종파들에게 있었던 어떤 고대의 관습들이 영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형태의 자연 숭배들 대부분은 후대의 진화하는 경배 기법과 혼합되었지만, 가장 초기의 보조·마음으로 활성화된 유형의 경배는, 새롭게 일깨워지는 인류의 종교적 본성이 영적인 영향들의 충동에 충분히 반응하게 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제 3 장. 동물들에 대한 경배

원시인은 고등(高等) 동물들에 대해 특별하고도 다정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조상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는 그들과 교미 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혼이 동물 형태가 되어 지구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훨씬 전에 있었던 동물 경배 실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다.

초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솜씨를 위해 동물들을 존경하였다. 그들은, 특정한 창조체들이 예민하게 냄새를 맡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안내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동물들은 모두 한 때 어떤 종족에 의해서 경배를 받았었다. 그러한 경배 대상물들 중에는 켄타우루스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로 생각되는 창조체들이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뱀을 경배하였고, 힌두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집에 있는 뱀들을 잘 대우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는 것은 뱀 숭배의 잔재이다. 뱀의 지혜는 그리스 마법의 상징이었으며 현대 의사들에 의해 아직도 하나의 표상으로 사용되

The savage believed that all chemical effects were due to the direct activity of supernatural forces.

85:2.4 (945.7) Ideas about tree spirits varied greatly among different tribes and races. Some trees were indwelt by kindly spirits; others harbored the deceptive and cruel. The Finns believed that most trees were occupied by kind spirits. The Swiss long mistrusted the trees, believing they contained tricky spirits. The inhabitants of India and eastern Russia regard the tree spirits as being cruel. The Patagonians still worship trees, as did the early Semites. Long after the Hebrews ceased tree worship, they continued to venerate their various deities in the groves. Except in China, there once existed a universal cult of the *tree of life*.

85:2.5 (946.1) The belief that water or precious metals beneath the earth's surface can be detected by a wooden divining rod is a relic of the ancient tree cults. The Maypole, the Christmas tree, and the superstitious practice of rapping on wood perpetuate certain of the ancient customs of tree worship and the later-day tree cults.

85:2.6 (946.2) Many of these earliest forms of nature veneration became blended with the later evolving techniques of worship, but the earliest mind-adjutant-activated types of worship were functioning long before the newly awakening religious nature of mankind became fully responsive to the stimulus of spiritual influences.

3. THE WORSHIP OF ANIMALS

85:3.1 (946.3) Primitive man had a peculiar and fellow feeling for the higher animals. His ancestors had lived with them and even mated with them. In southern Asia it was early believed that the souls of men came back to earth in animal form. This belief was a survival of the still earlier practice of worshipping animals.

85:3.2 (946.4) Early men revered the animals for their power and their cunning. They thought the keen scent and the farseeing eyes of certain creatures betokened spirit guidance. The animals have all been worshiped by one race or another at one time or another. Among such objects of worship were creatures that were regarded as half human and half animal, such as centaurs and mermaids.

85:3.3 (946.5) The Hebrews worshiped serpents down to the days of King Hezekiah, and the Hindus still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ir house snakes. The Chinese worship of the dragon is a survival of the snake cults. The wisdom of the serpent was a symbol of Greek medicine and is

고 있다. 뱀을 길들이는 기술은, 일상적으로 뱀에게 물려서 면역성을 갖게 되어 사실상 독액에 온통 중독되고 이 독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뱀을 사랑하는 예배종파의 여자 무당들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 왔다.

곤충들과 다른 동물들을 경배하는 것은 나중에 황금률—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 바라는 대로 남(모든 형태의 생명체)에게 행하기—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장되었다. 옛 사람들은 한 때 모든 바람들이 새들의 날개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날개를 가진 모든 창조체들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였다. 초기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현상들이 해와 달의 일부분을 먹어버리는 늑대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힌두 지역의 사람들은 말의 머리를 가진 비쉬누를 종종 보여준다. 동물 형상이, 잊혀진 하느님 또는 사라진 예배종파를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진화하는 종교의 초기 시대에는 양이 전형적인 희생 제물 용도의 동물이 되었으며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종교에서의 상징주의는 그 상징이 기원적 경배 관념을 바꾸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주의는 물질적인 사물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배되는 노골적인 우상경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자연요소에 대한 경배

인류는 땅, 공기, 물, 그리고 불을 경배하였다. 원시적인 종족들은 샘물을 존경하였고 강들을 경배하였다. 지금도 몽고에서는 강을 숭배하는 예배종파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번창하고 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이 종교적인 예식이 되었고, 그리스인들은 해마다 종교 예식의 일환으로 목욕을 하는 실천 관행이 있었다. 고대의 사람들이, 거품이 이는 우물, 웅숭음치는 분수, 흐르는 강들, 그리고 사납게 흐르는 급류들 속에 영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움직이는 물은, 영의 활동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이러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강의 하느님을 거스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물들과 사건들이 여러 시대들마다 서로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적인 자극제로 기능하였다. 무지개는 인도의 고지대에 사는 부족들에 의해 아직도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가 거대한 천상의 뱀으로 여겨지고 있다;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교인 들은 “약속의 활”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한 지역에서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동풍(東風)을 하느님으로 여기지만; 인도에서는 그것이 먼지와 가뭄을 가져오기 때문에 악마로 여겨진다. 고대의

still employed as an emblem by modern physicians. The art of snake charming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days of the female shamans of the *snake love cult*, who, as the result of daily snake bites, became immune, in fact, became genuine venom addicts and could not get along without this poison.

85:3.4 (946.6) The worship of insects and other animals was promoted by a later mis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 doing to others (every form of life) as you would be done by. The ancients once believed that all winds were produced by the wings of birds and therefore both feared and worshiped all winged creatures. The early Nordics thought that eclipses were caused by a wolf that devoured a portion of the sun or moon. The Hindus often show Vishnu with a horse's head. Many times an animal symbol stands for a forgotten god or a vanished cult. Early in evolutionary religion the lamb became the typical sacrificial animal and the dove the symbol of peace and love.

85:3.5 (946.7) In religion, symbolism may be either good or bad just to the extent that the symbol does or does not displace the original worshipful idea. And symbolism must not be confused with direct idolatry wherein the material object is directly and actually worshiped.

4. WORSHIP OF THE ELEMENTS

85:4.1 (946.8) Mankind has worshiped earth, air, water, and fire. The primitive races venerated springs and worshiped rivers. Even now in Mongolia there flourishes an influential river cult. Baptism became a religious ceremonial in Babylon, and the Creeks practiced the annual ritual bath. It was easy for the ancients to imagine that the spirits dwelt in the bubbling springs, gushing fountains, flowing rivers, and raging torrents. Moving waters vividly impressed these simple minds with beliefs of spirit animation and supernatural power. Sometimes a drowning man would be refused succor for fear of offending some river god.

85:4.2 (947.1) Many things and numerous events have functioned as religious stimuli to different peoples in different ages. A rainbow is yet worshiped by many of the hill tribes of India. In both India and Africa the rainbow is thought to be a gigantic celestial snake; Hebrews and Christians regard it as “the bow of promise.” Likewise, influences regarded as beneficent in one part of the world may be looked upon as malignant in other regions. The east wind is a god in South America, for it brings rain; in India it is a devil because it brings dust and causes drought. The

베도원 족속들은 자연의 영이 모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도 자연의 영들에 대한 믿음은 불, 물, 그리고 공기의 천사로 히브리 신학 속에 영속성으로 보존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였다.

구름과 비 그리고 우박은, 모두 수많은 원시적 부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을 경배하는 초기의 많은 예배종파들에 의해서,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는 초기 사람에게 겁을 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소란스러운 자연 현상에 의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둥을 화가 난 신(神)의 음성으로 간주하였다. 불에 대한 경배와 번개에 대한 두려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초기의 많은 집단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시적 필사자들의 마음속에서 마술과 혼합되어 있었다. 마술을 신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술적인 방법들을 실천한 결과로 우연히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반면, 철저하게 실패한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무관심하게 잊어버린다. 불에 대한 존경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점에 달하였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부족들은 불을 신(神) 그 자체로 경배하였다; 또 어떤 부족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神)들의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영에 대한, 불타오르는 상징으로 그것을 존경하였다.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처녀들에게는 거룩한 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망을 보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20세기에도 많은 종교적 예배봉사들의 예식의 일부분으로 촛불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제 5 장. 하늘 몸체에 대한 경배

바위, 언덕, 나무,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경배는, 자연의 힘을 두려움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쳐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의 신격화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발달하였다.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별들은 육신의 삶으로부터 떠난 위대한 사람의 영화롭게 된 혼으로 간주되었다. 갈대아인 별 예배종파자들은 자신들이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의 자녀라고 생각했다.

달에 대한 경배가 해에 대한 경배보다 먼저 있었다. 달에 대한 숭배는 사냥 시대에 최고점에 달한 반면, 해에 대한 경배는 그 후에 이루어진 농경 시대의 주요 종교적 예식이 되었다. 태양 경배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렸으며, 그곳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가 나중에 미트라 예배종파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태양은 자기들의 왕들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갈대아인들은 “우주의 일곱 순환계들” 중심에 태양을 위치시켰다. 후대의 문명인들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의 이름을 불임으로써 태양을 공경하였다.

태양의 하느님은 처녀-탄생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는 신비로운 아버지이며 그리고 이 운명의 아들은 은혜 받은 자기민족의 구원자로서 언젠가

ancient Bedouins believed that a nature spirit produced the sand whirls, and even in the times of Moses belief in nature spirits was strong enough to insure their perpetuation in Hebrew theology as angels of fire, water, and air.

85:4.3 (947.2) Clouds, rain, and hail have all been feared and worshiped by numerous primitive tribes and by many of the early nature cults. Windstorms with thunder and lightning overawed early man. He was so impressed with these elemental disturbances that thunder was regarded as the voice of an angry god. The worship of fire and the fear of lightning were linked together and were widespread among many early groups.

85:4.4 (947.3) Fire was mixed up with magic in the minds of primitive fear-ridden mortals. A devotee of magic will vividly remember one positive chance result in the practice of his magic formulas, while he nonchalantly forgets a score of negative results, out-and-out failures. Fire reverence reached its height in Persia, where it long persisted. Some tribes worshiped fire as a deity itself; others revered it as the flaming symbol of the purifying and purging spirit of their venerated deities. Vestal virgins were charged with the duty of watching sacred fires, and in the twentieth century candles still burn as a part of the ritual of many religious services.

5. WORSHIP OF THE HEAVENLY BODIES

85:5.1 (947.4) The worship of rocks, hills, trees, and animals naturally developed up through fearful veneration of the elements to the deification of the sun, moon, and stars. In India and elsewhere the stars were regarded as the glorified souls of great men who had departed from the life in the flesh. The Chaldean star cultists considered themselves to be the children of the sky father and the earth mother.

85:5.2 (947.5) Moon worship preceded sun worship. Veneration of the moon was at its height during the hunting era, while sun worship became the chief religious ceremony of the subsequent agricultural ages. Solar worship first took extensive root in India, and there it persisted the longest. In Persia sun veneration gave rise to the later Mithraic cult. Among many peoples the sun was regarded as the ancestor of their kings. The Chaldeans put the sun in the center of “the seven circles of the universe.” Later civilizations honored the sun by giving its name to the first day of the week.

85:5.3 (947.6) The sun god was supposed to be the mystic father of the virgin-born sons of destiny who ever and anon were thought to be bestowed

는 멀지 않아 증여될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간난 아기는 어떤 거룩한 강물 위로 떠 내려와서, 기이한 인연으로 구출되어 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어서 자기 민족들을 구출하도록 자라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제 6 장. 사람에 대한 경배

이 세상과 저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경배하던 사람은, 그러한 찬미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야만인들은 짐승과 사람 그리고 하느님들 사이를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초기 시대의 사람은 모든 비범한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개인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러한 존재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경외심으로 존경하였고; 어느 정도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경배하였다. 쌍둥이를 낳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또는 매우 운이 나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미치광이들과 간질 병자들 그리고 정신박약자들이 정상적인 동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존재들 속에 하느님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제들과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경배의 대상이었다; 나이 많은 거룩한 사람들은 신(神)들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부족장들이 죽으면 신(神)화 되었다. 나중에는, 세상을 떠난 특출한 혼은 성자가 되었다. 도움받지 않는 진화는, 영화롭게 되고, 드높여진, 죽은 인간에서의 진화된 영보다 더 높은 하느님을 결코 만들어 낸 적이 없다. 초기의 진화 단계에서는 종교가 자기 자신의 하느님들을 만든다. 계시의 과정에서 하느님들이 종교를 형성한다. 진화 종교는 필사 사람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 하느님을 창조한다; 계시 종교는 필사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진화시키고 변환시키기를 추구한다.

인간으로부터 기원된다고 가정하는 귀신 하느님들은, 자연 하느님들과는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하느님들의 위치까지 높여진 만신(萬神)적 특성의 사조(思潮)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자연 숭배 예배종파들은 나중에 나타난 귀신 숭배 예배종파들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종교 체계들은 신(神)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 자연 하느님들과 귀신 하느님들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변개의 주인이면서 귀신의 영웅이기도 한 토르에 의해 설명되듯이, 혼란스럽게 얽힌 개념들이 들어 있는 신학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한 사람 경배는, 현세의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숭배를 명령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로 자기들이 신(神)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주장하였을 때 최고점에 달하였다.

제 7 장. 경배와 지혜에 대한 보조자

as saviors upon favored races. These supernatural infants were always put adrift upon some sacred river to be rescued in an extraordinary manner, after which they would grow up to become miraculous personalities and the deliverers of their peoples.

6. WORSHIP OF MAN

85:6.1 (948.1) Having worshiped everything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in the heavens above, man has not hesitated to honor himself with such adoration. The simple-minded savage make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beasts, men, and gods.

85:6.2 (948.2) Early man regarded all unusual persons as superhuman, and he so feared such beings as to hold them in reverential awe; to some degree he literally worshiped them. Even having twins was regarded as being either very lucky or very unlucky. Lunatics, epileptics, and the feeble-minded were often worshiped by their normal-minded fellows, who believed that such abnormal beings were indwelt by the gods. Priests, kings, and prophets were worshiped; the holy men of old were looked upon as inspired by the deities.

85:6.3 (948.3) Tribal chiefs died and were *deified*. Later, distinguished souls passed on and were *sainted*. Unaided evolution never originated gods higher than the glorified, exalted, and evolved spirits of deceased humans. In early evolution religion creates its own gods. In the course of revelation the Gods formulate religion. Evolutionary religion creates its gods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mortal man; revelatory religion seeks to evolve and transform mortal man into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85:6.4 (948.4) The ghost gods, who are of supposed human origi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nature gods, for nature worship did evolve a pantheon — nature spirits elevated to the position of gods. The nature cults continued to develop along with the later appearing ghost cults, and each exerted an influence upon the other. Many religious systems embraced a dual concept of deity, nature gods and ghost gods; in some theologies these concepts are confusingly intertwined, as is illustrated by Thor, a ghost hero who was also master of the lightning.

85:6.5 (948.5) But the worship of man by man reached its height when temporal rulers commanded such veneration from their subjects and, in substantiation of such demands, claimed to have descended from deity.

7.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자연 경배는 원시적인 남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또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바로 그 원시적인 마음속에는 여섯 번째 보조 영이 항상 작용하고 있었는데, 영은 인간의 진화 위상을 안내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증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영은, 경배에 대한 갈망의 첫 현시활동이 아무리 원시적이라 할지라도, 인간 종족들에게 그것을 계속 자극시켰다. 경배의 영은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인간적 충동을 명확하게 탄생시켰으며, 그것에 대한 초기의 실천은 자연을 대상으로 삼는 일에 집중되었다.

모든 진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을 안내하고 통제한 것은 사고(思考)가 아니라 느낌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원시적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회피와 명예를 바침과 경배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경배에 대한 욕망은 지혜—묵상으로의 그리고 체험으로의 사고—에 의해서 충고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그 후에는 실제적인 종교 현상으로 발전된다. 지혜의 영인 일곱 번째 보조 영이 효과적인 봉사사명을 성취하면, 사람은 경배 과정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물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자연의 하느님께로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의 영원한 창조자께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85:7.1 (948.6) Nature worship may seem to have arisen naturally and spontaneously in the minds of primitive men and women, and so it did; but there was operating all this time in these same primitive minds the sixth adjutant spirit, which had been bestowed upon these peoples as a directing influence of this phase of human evolution. And this spirit was constantly stimulating the worship urge of the human species, no matter how primitive its first manifestations might be. The spirit of worship gave definite origin to the human impulse to worship, notwithstanding that animal fear motivated the expression of worshipfulness, and that its early practice became centered upon objects of nature.

85:7.2 (948.7) You must remember that feeling, not thinking, was the guiding and controlling influence in all evolutionary development. To the primitive mi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fearing, shunning, honoring, and worshiping.

85:7.3 (948.8) When the worship urge is admonished and directed by wisdom — meditative and experiential thinking — it then begins to develop into the phenomenon of real religion. When the seventh adjutant spirit, the spirit of wisdom, achieves effective ministration, then in worship man begins to turn away from nature and natural objects to the God of nature and to the eternal Creator of all things natural.

85:7.4 (949.1)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6 편 종교의 초기 진화

⇨ 085

유랜시아 책

08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6 편 종교의 초기 진화

섹션

소개

- 제 1 장. 운수: 행운과 불운
- 제 2 장. 운수의 개인화구현
- 제 3 장. 죽음—설명할 수 없는 것
- 제 4 장. 죽음-생존 개념
- 제 5 장. 귀신-혼의 개념
- 제 6 장. 귀신-영의 환경
- 제 7 장. 원시 종교의 기능

소개

전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예배 충동으로부터의 종교 진화는 계시에 의존된 것이 아니다. 우주적으로 증여된 영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마음-보조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있는 인간 마음의 정상적인 기능은 그러한 발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종교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처음으로 가졌던 자연의 기세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이 개인성구현되고, 영성화 되고, 결국에는 인간 의식(意識) 속에서 신(神)화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유형의 종교는 진화하는 동물 마음들의 심리적 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결과인데, 그러한 마음들은 이미 한 때 초자연에 대한 개념을 간직한 이후에 일어난다.

제 1 장. 운수: 행운과 불운

자연적인 경배 충동을 제외시킨다면, 초기의 진화적 종교는 운수—소위 행운, 평범한 사건들—에 대한 인간 체험에 그 기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인은 음식을 찾아다녔다. 그러한 탐색의 결과

PAPER 86

EARLY EVOLUTION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 1. Chance: Good Luck and Bad Luck
- 2. The Personification of Chance
- 3. Death — The Inexplicable
- 4. The Death-Survival Concept
- 5. The Ghost-Soul Concept
- 6. The Ghost-Spirit Environment
- 7. The Function of Primitive Religion

INTRODUCTION

86:0.1 (950.1) THE evolution of religion from the preceding and primitive worship urge is not dependent on revelation. The normal functioning of the human mind under the directive influence of the sixth and seventh mind-adjutants of universal spirit bestowal is wholly sufficient to insure such development.

86:0.2 (950.2) Man's earliest prereligious fear of the forces of nature gradually became religious as nature became personalized, spiritized, and eventually deified in human consciousness. Religion of a primitive type was therefore a natural biologic consequence of the psychologic inertia of evolving animal minds after such minds had once entertained concepts of the supernatural.

1. CHANCE: GOOD LUCK AND BAD LUCK

86:1.1 (950.3) Aside from the natural worship urge, early evolutionary religion had its roots of origin in the human experiences of chance — so-called luck, commonplace happenings. Primitive man

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들이 행운과 불운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들을 하도록 만들었다. 생존과 죽음의 불확실하고 초조한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살아야만 하는 남자와 여자들의 삶 속에서 불운은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었다.

야만인들의 제한된 지적 시야가 너무나도 운수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행운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일정한 요소가 되었다. 원시적인 유란시아인들은 생활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투쟁하였다; 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한 삶을 살았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변치 않는 두려움은, 모든 쾌락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절망적인 구름을 이 야만인들 머리 위에 드리웠으며; 그들은 불운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데 대한 변치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야만인들은 행운이 달아나는 것을 항상 염려하였다; 그러한 행운 뒤에는 재난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였다.

불운에 대한 항상 존재하는 두려움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행운—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음—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불운—무엇인가 했는데 아무 것도 얻지 못함—을 자초하겠는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은 쉽게 잊지만—당연하게 여긴다—불운은 애써 기억한다.

초기의 사람은 불확실성과 운수—불운—에 대한 계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삶은 운수라는 일종의 흥미진진한 경기와 같았다; 생존은 도박과 같았다. 부분적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아직도 운수를 믿고 도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원시인은 두 개의 잠재적인 관심들 즉: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욕망과 무엇인가를 하고서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그리고 생존에 있어서의 이러한 도박은 야만적인 마음을 소유한 초기 인간에게 주요 관심사였고 최극의 매력이었다.

목축을 하는 후대의 사람들도 운수와 행운에 대해 똑같은 관점을 가진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더 후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농부는 자기 자신이 가뭄, 홍수, 우박, 폭풍우, 해충, 식물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 등에 의한 피해자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연적인 영향들이 개별존재의 번영을 좌우하자, 그들은 그것을 좋은 운 또는 나쁜 운으로 여기게 되었다.

운수와 행운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고대의 모든 민족들의 생각 속에 강력하게 침투하였다. 심지어는 후대에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돌이켜 보니,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was a food hunter. The results of hunting must ever vary, and this gives certain origin to those experiences which man interprets as *good luck* and *bad luck*. Mischance was a great factor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who lived constantly on the ragged edge of a precarious and harassed existence.

86:1.2 (950.4) The limited intellectual horizon of the savage so concentrates the attention upon chance that luck becomes a constant factor in his life. Primitive Urantians struggled for existence, not for a standard of living; they lived lives of peril in which chance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constant dread of unknown and unseen calamity hung over these savages as a cloud of despair which effectively eclipsed every pleasure; they lived in constant dread of doing something that would bring bad luck. Superstitious savages always feared a run of good luck; they viewed such good fortune as a certain harbinger of calamity.

86:1.3 (950.5) This ever-present dread of bad luck was paralyzing. Why work hard and reap bad luck — nothing for something — when one might drift along and encounter good luck — something for nothing? Unthinking men forget good luck — take it for granted — but they painfully remember bad luck.

86:1.4 (950.6) Early man lived in uncertainty and in constant fear of chance — bad luck. Life was an exciting game of chance; existence was a gamble. It is no wonder that partially civilized people still believe in chance and evince lingering predispositions to gambling. Primitive man alternated between two potent interests: the passion of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and the fear of getting nothing for something. And this gamble of existence was the main interest and the supreme fascination of the early savage mind.

86:1.5 (951.1) The later herders held the same views of chance and luck, while the still later agriculturists were increasingly conscious that crops were immediately influenced by many things over which man had little or no control. The farmer found himself the victim of drought, floods, hail, storms, pests, and plant diseases, as well as heat and cold. And as all of these natural influences affected individual prosperity, they were regarded as good luck or bad luck.

86:1.6 (951.2) This notion of chance and luck strongly pervaded the philosophy of all ancient peoples. Even in recent times in the Wisdom of Solomon it is said: “I returned and saw that the race is not to the swift, nor the battle to the strong, neither bread to the wise, nor riches to men of understanding,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숙명과 기회는 누구나 닥치는 것이다. 사람은 그의 숙명을 알지 못하기에; 물고 기들이 악한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밧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제 2 장. 운수의 개인화구현

불안은 야만적인 마음의 자연적인 상태이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때는, 단순히 그들의 먼 조상들의 자연적인 생활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안이 실제로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활동을 억제하며 반드시 진화적인 변화와 생물학적인 적응을 시작하게 한다. 고통과 투쟁은 진보적인 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삶을 위한 투쟁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부족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비탄에 잠기기까지 한다. 원시인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해소시킬 물질적 근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종교는,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에는 우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비함 때문에, 실존을 위한 투쟁에서 한 요소가 되었다.

원시적인 마음은 논리적이기는 하였지만 지능적인 관계적-연합에 대한 관념은 거의 없었다; 야만적인 마음은 무식하였고 전적으로 순박하였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야만인들은 그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하였다. 문명인들이 미신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야만인들의 세계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지에 불과하였다. 인류는, 동기와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느리게 왔다. 인간 존재들은, 실존에서의 반응들이, 행동과 그들의 결과물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겨우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야만인은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인 모든 것들을 개인성구현 시키려고 분투하며, 그리하여 자연과 운수 둘 모두 귀신으로 개인성구현되었고 나중에는 하느님들로 여겨졌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이라 여기는 것, 당장 또는 먼 앞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아-이익은 대개 논리를 흐리게 만든다. 야만인과 문명화된 사람의 마음에서의 차이는 자연본성이라기보다는 내용, 본질특성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하여 초자연적인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지적인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게으르고 편리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행운이라는 말은 인간이 실존한

nor favor to men of skill; but fate and chance befall them all. For man knows not his fate; as fishes are taken in an evil net, and as birds are caught in a snare, so are the sons of men snared in an evil time when it falls suddenly upon them."

2. THE PERSONIFICATION OF CHANCE

86:2.1 (951.3) Anxiety was a natural state of the savage mind. When men and women fall victims to excessive anxiety, they are simply reverting to the natural estate of their far-distant ancestors; and when anxiety becomes actually painful, it inhibits activity and unfailingly institutes evolutionary changes and biologic adaptations. Pain and suffering are essential to progressive evolution.

86:2.2 (951.4) The struggle for life is so painful that certain backward tribes even yet howl and lament over each new sunrise. Primitive man constantly asked, "Who is tormenting me?" Not finding a material source for his miseries, he settled upon a spirit explanation. And so was religion born of the fear of the mysterious, the awe of the unseen, and the dread of the unknown. Nature fear thus became a factor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first because of chance and then because of mystery.

86:2.3 (951.5) The primitive mind was logical but contained few ideas for intelligent association; the savage mind was uneducated, wholly unsophisticated. If one event followed another, the savage considered them to be cause and effect. What civilized man regards as superstition was just plain ignorance in the savage. Mankind has been slow to learn that there is not necessarily any relationship between purposes and results. Human beings are only just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 reactions of existence appear between acts and their consequences. The savage strives to personalize everything intangible and abstract, and thus both nature and chance become personalized as ghosts — spirits — and later on as gods.

86:2.4 (951.6) Man naturally tends to believe that which he deems best for him, that which is in his immediate or remote interest; self-interest largely obscures logic.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ds of savage and civilized men is more one of content than of nature, of degree rather than of quality.

86:2.5 (951.7) But to continue to ascribe things difficult of comprehension to supernatural causes is nothing less than a lazy and convenient way of avoiding all forms of intellectual hard work. Luck is

모든 시대들에 있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통찰할 수 없는 또는 통찰하기 싫어하는 현상들을 가리킨다. 운수라는 말은 사람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나태하여 원인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부족할 때, 인종들에게 독창력과 호명심이 부족할 때에만 자연적인 발생사건들을 우연한 현상 또는 불운으로 간주한다. 생명의 현상에 대한 탐구로 말미암아, 운수와 행운 그리고 소위 우연한 현상들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며, 그 대신에 모든 결과들이 있기 전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우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기쁨으로 바뀐다.

야만인들은 모든 자연이 살아있다고, 어떤 존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명화된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생명이 없는 물체들을 발로 차면서 저주한다. 원시인은 어떤 것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다고 항상 생각하였다. 원시인에게 있어서 운명의 권역, 행운의 기능, 영의 세계는 원시적인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조직되지 않은 것이었고 우연한 것이었다. 행운은 영적인 세계의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나중에 하느님들의 기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정령(精靈) 숭배로부터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정령 숭배와 동시에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믿음들 역시 경배의 형태로 바뀌었다. 자연주의는 종교가 아니다—종교의 부산물이다.

제 3 장. 죽음—설명할 수 없는 것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최극의 충격이었으며, 우연과 신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대신에 죽음에 대한 충격이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종교를 조성시켰다. 야만적인 민족들 사이에서 죽음은 대개 폭력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비폭력에 의한 죽음은 점점 더 신비한 것으로 여겨졌다. 자연적인 그리고 예상되는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원시 민족들의 의식에게는 명쾌하지 않았으며, 그 필연성을 깨닫기까지는 기나 긴 세월이 요구되어왔다.

초기의 사람은 생명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죽음은 어떤 종류의 내려오는 방문으로 여겨졌다. 모든 종족들은 죽음에 대한 초기 자체의 희미한 전통들, 죽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인간 마음속에는 인간의 삶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권역, 흐릿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영세계에 대한 불투명한 개념이 이미 존재하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적힌 긴 목록에 죽음이 추가되었다.

인간의 모든 질병들과 자연사(自然死)는, 처음에는 영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믿어졌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종족들은 질병이

merely a term coined to cover the inexplicable in any age of human existence; it designates those phenomena which men are unable or unwilling to penetrate. Chance is a word which signifies that man is too ignorant or too indolent to determine causes. Men regard a natural occurrence as an accident or as bad luck only when they are destitute of curiosity and imagination, when the races lack initiative and adventure. Exploration of the phenomena of life sooner or later destroys man's belief in chance, luck, and so-called accidents, substituting therefor a universe of law and order wherein all effects are preceded by definite causes. Thus is the fear of existence replaced by the joy of living.

86:2.6 (952.1) The savage looked upon all nature as alive, as possessed by something. Civilized man still kicks and curses those inanimate objects which get in his way and bump him. Primitive man never regarded anything as accidental; always was everything intentional. To primitive man the domain of fate, the function of luck, the spirit world, was just as unorganized and haphazard as was primitive society. Luck was looked upon as the whimsical and temperamental reaction of the spirit world; later on, as the humor of the gods.

86:2.7 (952.2) But all religions did not develop from animism. Other concepts of the supernatural were contemporaneous with animism, and these beliefs also led to worship. Naturalism is not a religion — it is the offspring of religion.

3. DEATH — THE INEXPLICABLE

86:3.1 (952.3) Death was the supreme shock to evolving man, the most perplexing combination of chance and mystery. Not the sanctity of life but the shock of death inspired fear and thus effectively fostered religion. Among savage peoples death was ordinarily due to violence, so that nonviolent death became increasingly mysterious. Death as a natural and expected end of life was not clear to the consciousness of primitive people, and it has required age upon age for man to realize its inevitability.

86:3.2 (952.4) Early man accepted life as a fact, while he regarded death as a visitation of some sort. All races have their legends of men who did not die, vestigial traditions of the early attitude toward death. Already in the human mind there existed the nebulous concept of a hazy and unorganized spirit world, a domain whence came all that is inexplicable in human life, and death was added to this long list of unexplained phenomena.

86:3.3 (952.5) All human disease and natural death was at first believed to be due to spirit influence. Even at the present time some civilized races

“악마”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에 의존한다. 후대의 그리고 보다 복잡한 신학 체계들도 여전히 죽음을 영적 세계의 작용의 탓으로 돌렸으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원죄(原罪)와 사람의 타락이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야만인을 자신이 일생의 신비스럽고 변화무쌍한 근원이라고 막연하게 상상하던 초자연적 세계로부터 도움을 구하도록 강제로 몰아간 것은, 질병과 죽음의 방문 앞에서의 인간의 허약함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자연의 막강한 기세 앞에서의 무능력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제 4 장. 죽음-생존 개념

필사자 개인성의 초물질적 상태에 대한 개념은 무의식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된 것들과 귀신에 대한 꿈이 순전히 우연하게 합쳐짐으로써 생겨났다. 죽은 부족장에 대한 꿈을 여러 부족민들이 동시에 꾸게 되는 것은, 옛 부족장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땀을 흘리고 떨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한 꿈으로부터 깨어난 야만인들에게 그것은 모두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다.

미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의 환상적인 기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항상 추측하려는 경향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꿈-귀신-미래-삶 개념은 이속고 자아-보존에 대한 생물학적 본능과 결합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초기의 사람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추운 지방에서 더 그러하였고, 그곳에서는 숨을 내릴 때 입김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호흡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 모든 종류의 괴상한 것들을 꿈꾸었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관한 비물질적인 무엇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인간의 혼(魂), 귀신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관념은, 호흡-꿈의 관념-체계로부터 도출되었다.

야만인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중적인 존재—육체와 호흡—라고 생각하였다. 육체를 제외한 호흡이 영(靈), 귀신과 같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개념을 가진 반면, 귀신들 또는 영들은 초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체현에서 벗어나게 된 영들이 실존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보기 드문 것, 비범한 것, 희귀한 것,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발생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원시 교리는 불멸에 대한 믿음일 필요가 없었다. 20개 이상을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무한과 영원을 도저히 착상할 수 없

regard disease as having been produced by “the enemy” and depend upon religious ceremonies to effect healing. Later and more complex systems of theology still ascribe death to the action of the spirit world, all of which has led to such doctrines as original sin and the fall of man.

86:3.4 (952.6) It was the realization of impotency before the mighty forces of nature, together with the recognition of human weakness before the visitations of sickness and death, that impelled the savage to seek for help from the supermaterial world, which he vaguely visualized as the source of these mysterious vicissitudes of life.

4. THE DEATH-SURVIVAL CONCEPT

86:4.1 (952.7) The concept of a supermaterial phase of mortal personality was born of the unconscious and purely accidental association of the occurrences of everyday life plus the ghost dream. The simultaneous dreaming about a departed chief by several members of his tribe seemed to constitute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old chief had really returned in some form. It was all very real to the savage who would awaken from such dreams reeking with sweat, trembling, and screaming.

86:4.2 (953.1) The dream origin of the belief in a future existence explains the tendency always to imagine unseen things in the terms of things seen. And presently this new dream-ghost-future-life concept began effectively to antidote the death fear associated with the biologic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86:4.3 (953.2) Early man was also much concerned about his breath, especially in cold climates, where it appeared as a cloud when exhaled. The *breath of life* was regarded as the one phenomenon which differentiated the living and the dead. He knew the breath could leave the body, and his dreams of doing all sorts of queer things while asleep convinced him that there was something immaterial about a human being. The most primitive idea of the human soul, the ghost, was derived from the breath-dream idea-system.

86:4.4 (953.3) Eventually the savage conceived of himself as a double — body and breath. The breath minus the body equaled a spirit, a ghost. While having a very definite human origin, ghosts, or spirits, were regarded as superhuman. And this belief in the existence of disembodied spirits seemed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the unusual, the extraordinary, the infrequent, and the inexplicable.

86:4.5 (953.4) The primitive doctrine of survival after death was not necessarily a belief in immortality. Beings who could not count over twenty could

다; 그들은 오히려 육신화가 거듭되는 것을 생각했다.

오렌지색 인종은 특별히 윤회와 환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다. 환생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유전적인 현상과 자손들의 특색이 조상을 닮는 현상의 목격으로부터 기원되었다. 조부모(祖父母) 그리고 다른 조상들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되었다. 후대의 어떤 종족들은 사람이 세 번 내지 일곱 번 죽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과(맨션세계들에 관한 아담의 가르침으로부터 잔재된),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유물들은, 20세기 미개인들의 다른 면에서의 모순된 교리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초기의 사람은 지옥이나 장래의 형벌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야만인들은 저 세상의 삶을, 모든 불운을 제외한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이 생각하였다. 나중에는 선한 귀신들과 나쁜 귀신들에 대한 운명—천국과 지옥—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떠나간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은 상태의 저 세상의 삶을 산다고 많은 원시 종족들이 믿게 된 이후로,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관념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늙은 사람들은 너무 쇠약해지기 전에 죽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였다.

거의 모든 집단들은 귀신이 된 혼의 운명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약한 사람의 혼은 반드시 허약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허약한 혼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데스 지옥을 고안해 내었다; 튼튼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 귀신도 작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초기의 안드-사람들은 자기들의 귀신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인들과 이집트인들은 혼과 육체가 함께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의 깊게 무덤을 건축하게 되었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게 되었다. 심지어는 현대인들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개별존재의 복제된 유령이 저승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였다; 살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혼의 진화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제 5 장. 귀신-혼의 개념

사람의 비물질적 부분은, 귀신, 영, 망령(亡靈), 유령(幽靈), 요귀, 그리고 최근에는 혼(魂)이라는 이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혼은 초기 사람의 꿈 망령이었다; 접촉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필사자 자신과 똑같은 것이었다. 꿈 망령을 꾸다는 믿음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을 갖고 있다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유도해 내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자연-영 믿음이 영속하기를 바라는 경향이었다; 에스키모인 들은 아직도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을 갖고 있다고

hardly conceive of infinity and eternity; they rather thought of recurring incarnations.

86:4.6 (953.5) The orange race was especially given to belief in transmigration and reincarnation. This idea of reincarnation originated in the observance of hereditary and trait resemblance of offspring to ancestors. The custom of naming children after grandparents and other ancestors was due to belief in reincarnation. Some later-day races believed that man died from three to seven times. This belief (residual from the teachings of Adam about the mansion worlds), and many other remnants of revealed religion, can be found among the otherwise absurd doctrines of twentieth-century barbarians.

86:4.7 (953.6) Early man entertained no ideas of hell or future punishment. The savage looked upon the future life as just like this one, minus all ill luck. Later on, a separate destiny for good ghosts and bad ghosts — heaven and hell — was conceived. But since many primitive races believed that man entered the next life just as he left this one, they did not relish the idea of becoming old and decrepit. The aged much preferred to be killed before becoming too infirm.

86:4.8 (953.7) Almost every group had a different idea regarding the destiny of the ghost soul. The Greeks believed that weak men must have weak souls; so they invented Hades as a fit place for the reception of such anemic souls; these unrobust specimens were also supposed to have shorter shadows. The early Andites thought their ghosts returned to the ancestral homelands. The Chinese and Egyptians once believed that soul and body remained together. Among the Egyptians this led to careful tomb construction and efforts at body preservation. Even modern peoples seek to arrest the decay of the dead. The Hebrews conceived that a phantom replica of the individual went down to Sheol; it could not return to the land of the living. They did make that important advance in the doctrine of the evolution of the soul.

5. THE GHOST-SOUL CONCEPT

86:5.1 (953.8) The nonmaterial part of man has been variously termed ghost, spirit, shade, phantom, specter, and latterly *soul*. The soul was early man's dream double; it was in every way exactly like the mortal himself except that it was not responsive to touch. The belief in dream doubles led directly to the notion that all things animate and inanimate had souls as well as men. This concept tended long to perpetuate the nature-spirit beliefs; the Eskimos still conceive that everything in nature has a spirit.

생각한다.

귀신이 된 혼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종족의 꿈꾸는 생활이 점차적으로 더욱 개발되었고 이러한 진화하는 영의 세계에 대한 활동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죽음을 “귀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를 제외하고, 원시적인 모든 부족들은, 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발전시켰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혼에 대한 이러한 미신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 마음과 그 속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생각 조절자의 공동 창작에 따라 혼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을 위하여 계시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초기의 사람들은 대개 내주 하는 영에 대한 개념과 진화적 본성의 혼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야만인들은, 귀신이 된 혼이 원래 몸속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감싸는 외적 대리자인지에 대해 매우 혼돈을 일으켰다. 혼란의 현존에서 이성적(理性的)인 사고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혼과 귀신 그리고 영에 대한 미개한 관점이 전체적으로 모순되게 되었다.

꽃과 그 향기의 관계처럼 혼이 육체와 관계된다고 생각하였다. 옛 사람들은 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즉:

1. 평범하게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기절한 경우.
2. 잠을 자면서, 자연적으로 꿈을 꾸는 경우.
3. 질병 또는 우연한 현상과 연관되어 혼수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경우.
4. 죽어서 영원히 떠난 경우.

야만인들은 재채기하는 것을, 혼이 육체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깨어서 지킴으로써 혼이 도망치려는 것을 육체가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중에는, 재채기를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는 말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덧붙여졌다.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잠을 자는 것은 귀신이 된 혼이 육체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소리침으로써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혼은 다른 형태의 무의식 속에서 더 멀리 떠나는 것으로, 아마도—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꿈은, 잠을 자는 동안 혼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개인들은, 자기가 꾸 꿈이, 깨어서 체험하는 것의 일부분인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옛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을 급하게 깨우지 않는 실천 관행을 제정하였는데, 혼이 몸속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밤에

86:5.2 (954.1) The ghost soul could be heard and seen, but not touched. Gradually the dream life of the race so developed and expanded the activities of this evolving spirit world that death was finally regarded as “giving up the ghost.” All primitive tribes, except those little above animals, have developed some concept of the soul. As civilization advances, this superstitious concept of the soul is destroyed, and man is wholly dependent on revelation and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for his new idea of the soul as the joint creation of the God-knowing mortal mind and its indwelling divine spirit, the Thought Adjuster.

86:5.3 (954.2) Early mortals usually failed to differentiate the concepts of an indwelling spirit and a soul of evolutionary nature. The savage was much confused as to whether the ghost soul was native to the body or was an external agency in possession of the body. The absence of reasoned thought in the presence of perplexity explains the gross inconsistencies of the savage view of souls, ghosts, and spirits.

86:5.4 (954.3) The soul was thought of as being related to the body as the perfume to the flower. The ancients believed that the soul could leave the body in various ways, as in:

86:5.5 (954.4) 1. Ordinary and transient fainting.

86:5.6 (954.5) 2. Sleeping, natural dreaming.

86:5.7 (954.6) 3. Coma and unconsciousness associated with disease and accidents.

86:5.8 (954.7) 4. Death, permanent departure.

86:5.9 (954.8) The savage looked upon sneezing as an abortive attempt of the soul to escape from the body. Being awake and on guard, the body was able to thwart the soul's attempted escape. Later on, sneezing was always accompanied by some religious expression, such as “God bless you!”

86:5.10 (954.9) Early in evolution sleep was regarded as proving that the ghost soul could be absent from the body, and it was believed that it could be called back by speaking or shouting the sleeper's name. In other forms of unconsciousness the soul was thought to be farther away, perhaps trying to escape for good — impending death. Dreams were looked upon as the experiences of the soul during sleep while temporarily absent from the body. The savage believes his dreams to be just as real as any part of his waking experience. The ancients made a practice of awaking sleepers gradually so that the soul might have time to get back into the body.

86:5.11 (954.10) All down through the ages men have stood in awe of the apparitions of the night season,

나타나는 유령을 두려워하였으며, 히브리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러한 관념을 반대하는 모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꿈 속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가 옳았던 것은, 영적인 세계의 개인성들이 물질적인 존재들과 교통할 방법을 모색할 때 일상적인 꿈들이 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혼이 동물에게로 또는 심지어 무생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동물과 정체화구현 하는, 사람이 늑대가 된다는 관념에서 정점에 달하였다. 어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잠이 들게 되면 그 혼이 늑대 또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야밤의 악탈 행위를 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다닐 수 있다고 믿었다.

원시인들은 혼이 호흡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본질특성이 호흡에 의해서 전해지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용맹스러운 우두머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 위에 숨을 크게 내쉬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였다.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성령 증여 기념식을 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입김을 뿜었다. 시편 기자(記者)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의 입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기록하였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나중에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였고 호흡과 마찬가지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물에 비친 모습도 때로는 이중적인 자아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었으며,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거울을 취급하였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인들은 죽음의 사건 안에서는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아직도, 사진이나 초상화나 모형 또는 형상들이 그 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킨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킨다.

혼은 일반적으로 호흡으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질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은 피 속에 귀신이 현존한다는 한 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셈의 자손들은 혼이 몸의 지방질 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이 금기로 지켜졌다. 가축을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잘라 오는 것이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눈이 혼의 창문과 같다고 간주되어 왔다.

혼이 세 개 내지 네 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을 하나 잃는 것은 불안감을, 두 개를 잃는 것은 질병을, 세 개를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의 혼은 호흡 속에, 또 하나는 머릿속에, 또 하나는 머리카락 속에, 또 하나는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환자들은 그들의 방황하는 혼들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야외를 방황하도록 충고를 받았다. 가장 훌륭한 주술사

and the Hebrews were no exception. They truly believed that God spoke to them in dreams, despite the injunctions of Moses against this idea. And Moses was right, for ordinary dreams are not the methods employ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spiritual world when they seek to communicate with material beings.

86:5.12 (954.11) The ancients believed that souls could enter animals or even inanimate objects. This culminated in the werewolf ideas of animal identification. A person could be a law-abiding citizen by day, but when he fell asleep, his soul could enter a wolf or some other animal to prowl about on nocturnal depredations.

86:5.13 (955.1) Primitive men thought that the soul was associated with the breath, and that its qualities could be imparted or transferred by the breath. The brave chief would breathe upon the newborn child, thereby imparting courage. Among early Christians the ceremony of bestowing the Holy Spirit was accompanied by breathing on the candidates. Said the Psalmist: “By the word of the Lord were the heavens made and all the host of them by the breath of his mouth.” It was long the custom of the eldest son to try to catch the last breath of his dying father.

86:5.14 (955.2) The shadow came, later on, to be feared and revered equally with the breath. The reflection of oneself in the water was also sometimes looked upon as proof of the double self, and mirrors were regarded with superstitious awe. Even now many civilized persons turn the mirror to the wall in the event of death. Some backward tribes still believe that the making of pictures, drawings, models, or images removes all or a part of the soul from the body; hence such are forbidden.

86:5.15 (955.3) The soul was generally thought of as being identified with the breath, but it was also located by various peoples in the head, hair, heart, liver, blood, and fat. The “crying out of Abel’s blood from the ground” is expressive of the onetime belief in the presence of the ghost in the blood. The Semites taught that the soul resided in the bodily fat, and among many the eating of animal fat was taboo. Head hunting was a method of capturing an enemy’s soul, as was scalping. In recent times the eyes have been regarded as the windows of the soul.

86:5.16 (955.4) Those who held the doctrine of three or four souls believed that the loss of one soul meant discomfort, two illness, three death. One soul lived in the breath, one in the head, one in the hair, one in the heart. The sick were advised to stroll about in the open air with the hope of recapturing their strayed souls. The greatest of the medicine men were supposed to exchange the

(呪術師)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아픈 혼을 새로운 것, “새로운 탄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바도난의 자녀들은 두 개의 혼, 호흡과 그림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초기의 낫-사람 부족들은 사람이 두 개의 개인, 혼과 육체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러한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적 관점에 반영되었다. 그리스인들 자신은 세 개의 혼들을 믿었는데; 성장하는 혼은 배속에 있고, 동물적인 혼은 심장 속에 있으며, 지적인 혼은 머릿속에 있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들은 사람이 육체와 혼과 이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제 6 장. 귀신-영의 환경

사람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고, 사회 환경을 획득하였으며, 귀신 환경을 상상하였다. 국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고, 가정은 사회 환경에 대한 반응이며, 교회는 환상적인 귀신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인류 역사상 매우 초기에는, 귀신과 영에 대한 상상적인 세계의 실체들이 보편적으로 믿어지게 되었으며, 새롭게 상상되어진 이러한 영의 세계는 원시적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힘을 갖게 되었다. 모든 인류의 정신적 도덕적 삶은 인간의 사고(思考)와 행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요소의 출현에 의해 항상 수정되었다.

필사자의 두려움이 그 뒤에 따라오는 원시 민족들의 모든 미신과 종교를, 환상과 무지에 대한 이러한 주요 전제(前提) 속으로 채워 넣었다. 이것은 계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유일한 종교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종족들이 이러한 미숙한 진화적 종교만을 신봉하고 있다.

진화가 진행되면서, 행운은 선한 영들과 연결되고 불운은 악한 영들과 연관되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강제적 적응의 불안감이 불운, 영적인 귀신들의 불쾌감으로 간주되었다. 원시인은 자신의 타고난 경배 충동과 운수에 대한 오해로부터 종교를 서서히 진화시켰다. 문명화된 사람은 이러한 우연한 발생사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허구적인 영들과 번덕스러운 하느님들을 대신에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험 체제를 삼는다.

지나가는 각 세대들은 자기 조상들의 어리석은 미신을 비웃는데, 한편으로는 깨우친 후손들의 일부에게서 계속 비웃음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그러한 생각과 경배에서의 잘못을 즐기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원시인의 마음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선천적인 생물학적 충동들을 초월하는 사상으로 지배되었다; 사람은 마침내 물질적 충동에 대한 반응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삶의 기술

sick soul of a diseased person for a new one, the “new birth.”

86:5.17 (955.5) The children of Badonan developed a belief in two souls, the breath and the shadow. The early Nodite races regarded man as consisting of two persons, soul and body. This philosophy of human existence was later reflected in the Greek viewpoint. The Greeks themselves believed in three souls; the vegetative resided in the stomach, the animal in the heart, the intellectual in the head. The Eskimos believe that man has three parts: body, soul, and name.

6. THE GHOST-SPIRIT ENVIRONMENT

86:6.1 (955.6) Man inherited a natural environment, acquired a social environment, and imagined a ghost environment. The state is man's reaction to his natural environment, the home to his social environment, the church to his illusory ghost environment.

86:6.2 (955.7)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realities of the imaginary world of ghosts and spirits became universally believed, and this newly imagined spirit world became a power in primitive society. The mental and moral life of all mankind was modified for all time by the appearance of this new factor in human thinking and acting.

86:6.3 (955.8) Into this major premise of illusion and ignorance, mortal fear has packed all of the subsequent superstition and religion of primitive peoples. This was man's only religion up to the times of revelation, and today many of the world's races have only this crude religion of evolution.

86:6.4 (955.9) As evolution progressed, good luck became associated with good spirits and bad luck with bad spirits. The discomfort of enforced adaptation to a changing environment was regarded as ill luck, the displeasure of the spirit ghosts. Primitive man slowly evolved religion out of his innate worship urge and his misconception of chance. Civilized man provides schemes of insurance to overcome these chance occurrences; modern science puts an actuary with mathematical reckoning in the place of fictitious spirits and whimsical gods.

86:6.5 (956.1) Each passing generation smiles at the foolish superstitions of its ancestors while it goes on entertaining those fallacies of thought and worship which will give cause for further smiling on the part of enlightened posterity.

86:6.6 (956.2) But at last the mind of primitive man was occupied with thoughts which transcended all of his inherent biologic urges; at last man was about to evolve an art of living based on something

을 진화시키게 되었다. 원시적인 철학적 생활 방침의 시초들이 창발하고 있었다. 삶에 대한 초자연적 기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만일 영적인 귀신이 화가 나면 불운을 가져오고 유쾌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인간 행위는 그에 따라 규제되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옳고 그름됨에 대한 개념이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계시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념들의 창발과 함께, 항상 화를 내는 영들을 달래기 위한 오랫동안의 낭비적인 투쟁, 진화적인 종교적 두려움에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가 시작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덤들과 신전(神殿)들과 희생 제물들 그리고 사제 제도들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낭비하였다. 그것은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대가였지만, 그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적인 의식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윤리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제 7 장. 원시 종교의 기능

미개인들은 대비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운에 대처하는 마법에 의한 대비책의 방법을 위하여, 두려움, 미신, 공포, 사제에 대한 선물의 힘든 사례금을 기꺼이 지불하였다. 원시적인 종교는 단순히 사냥터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은 산업의 재해와 현대적인 형식의 삶 속에서의 급박한 사정에 대비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현대 사회는 보험 업무를 사제들과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하여, 그것을 경제의 권역 속에 맡기고 있다. 종교는 점점 더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대비책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통제하기 위해 낭비적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종교는, 불운에 대비하는 보험 계획으로 기능하던 이전의 개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철학적 차원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이러한 고대의 관념들은, 사람이 숙명론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었다; 그들은 적어도 운명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성을 규제해야만 한다는 것,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는 초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시켰다.

현대의 문명화된 종족들은 실존에서의 행운과 일상적인 불평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기던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막 창발하여 솟아 오르고 있다. 인류는 불운을 귀신-영 때문으로 해석하는 속박에서 해방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일생의 변천들이 영에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인간의 불평등이 정치적 부적응, 사

more than response to material stimuli. The beginnings of a primitive philosophic life policy were emerging. A supernatural standard of living was about to appear, for, if the spirit ghost in anger visits ill luck and in pleasure good fortune, then must human conduct be regulated accordingly. The concept of right and wrong had at last evolved; and all of this long before the times of any revelation on earth.

86:6.7 (956.3) With the emergence of these concepts, there was initiated the long and wasteful struggle to appease the ever-displeased spirits, the slavish bondage to evolutionary religious fear, that long waste of human effort upon tombs, temples, sacrifices, and priesthoods. It was a terrible and frightful price to pay, but it was worth all it cost, for man therein achieved a natural consciousness of relative right and wrong; human ethics was born!

7. THE FUNCTION OF PRIMITIVE RELIGION

86:7.1 (956.4) The savage felt the need of insurance, and he therefore willingly paid his burdensome premiums of fear, superstition, dread, and priest gifts toward his policy of magic insurance against ill luck. Primitive religion was simply the payment of premiums on insurance against the perils of the forests; civilized man pays material premiums against the accidents of industry and the exigencies of modern modes of living.

86:7.2 (956.5) Modern society is remov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from the realm of priests and religion, placing it in the domain of economics. Religion is concerning itself increasingly with the insurance of life beyond the grave. Modern men, at least those who think, no longer pay wasteful premiums to control luck. Religion is slowly ascending to higher philosophic levels in contrast with its former function as a scheme of insurance against bad luck.

86:7.3 (956.6) But these ancient ideas of religion prevented men from becoming fatalistic and hopelessly pessimistic; they believed they could at least do something to influence fate. The religion of ghost fear impressed upon men that they must *regulate their conduct*, that there was a supermaterial world which was in control of human destiny.

86:7.4 (956.7) Modern civilized races are just emerging from ghost fear as an explanation of luck and the commonplace inequalities of existence. Mankind is achieving emancipation from the bondage of the ghost-spirit explanation of ill luck. But while men are giving up the erroneous doctrine of a spirit cause of the vicissitudes of life, they exhibit a surprising willingness to accept an

회적 불공정 그리고 산업에서의 경쟁의 탓으로 여기라고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의 동등하게 그릇된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정도의 자발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제정, 증가하는 박애주의 그리고 더욱 많은 산업적 재조직은, 비록 그것들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자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해도, 탄생의 사실들과 삶의 발생 사고들을 치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실들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법칙 내에서의 지혜로운 조종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도록 해 줄 것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이끄는 과학적 지식만이, 이른바 우연히 일어나는 흉하고 불길한 것들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이다.

산업과 전쟁과 노예제도 그리고 시민 정부는, 천연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의 사회적 진화에 반응하여 발생되었다; 그와 유사하게 종교도 허구적인 귀신 세계의 가공의 환경에 반응하여 발생되었다. 종교는 자아-유지에 대한 진화적 발전이었으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념 속에서 그리고 철저한 비(非)논리성 속에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향을 미쳐 왔다.

원시적인 종교는, 잘못된 두려움의 강력하고도 장엄한 기세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진정한 영적 기세인 생각 조절자의 중여를 위하여, 인간 마음이라는 토양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신성한 조절자들은 그 후로 하느님-두려움을 하느님-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 진화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효력이 있다.

[네바돈의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almost equally fallacious teaching which bids them attribute all human inequalities to political misadaptation, social injusti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But new legislation, increasing philanthropy, and more industrial reorganization, however good in and of themselves, will not remedy the facts of birth and the accidents of living. Only comprehension of facts and wise manipulation within the laws of nature will enable man to get what he wants and to avoid what he does not want. Scientific knowledge, leading to scientific action, is the only antidote for so-called accidental ills.

86:7.5 (957.1) Industry, war, slavery, and civil government arose in response to the social evolution of man in his natural environment; religion similarly arose as his response to the illusory environment of the imaginary ghost world. Religion was an evolutionary development of self-maintenance, and it has worked, notwithstanding that it was originally erroneous in concept and utterly illogical.

86:7.6 (957.2) Primitive religion prepared the soil of the human mind, by the powerful and awesome force of false fear, for the bestowal of a bona fide spiritual force of supernatural origin, the Thought Adjuster. And the divine Adjusters have ever since labored to transmute God-fear into God-love. Evolution may be slow, but it is unerringly effective.

86:7.7 (957.3) [Presented by an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7 편 귀신 예배종파

⇨ 086

유랜시아 책

08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7 편 귀신 예배종파

섹션

소개

제 1 장. 귀신에 대한 두려움

제 2 장. 귀신 달래기

제 3 장. 조상 경배

제 4 장.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귀신

제 5 장. 진보하는 귀신 숭배

제 6 장. 강제 퇴거와 축귀(逐鬼)

제 7 장. 예배종파주의의 본성

PAPER 87

THE GHOST CULTS

SECTIONS

Introduction

1. Ghost Fear

2. Ghost Placation

3. Ancestor Worship

4. Good and Bad Spirit Ghosts

5. The Advancing Ghost Cult

6. Coercion and Exorcism

7. Nature of Cultism

소개

귀신 예배종파는 불운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는 것으로써 진화되었다; 그것의 원시적인 종교적 계율은 불운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초기 종교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신(神)을 인정하거나 또는 초인간을 존경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것들의 예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귀신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또는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귀신 예배종파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보다 높고 장래의 보답을 위한 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사람은 귀신 숭배와 오랜 세월 동안 쓰라린 투쟁을 해왔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귀신-영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이 비굴하게 노예가 되었던 이러한 그림보다 더 축은한 느낌을 일으키도록 그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탄생과 함께, 인류는 종교적 진화의 오르막길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상상력은 자아의 바닷가를 떠나갔고, 참된 신(神), 실제 하느님의 개념에 도달할 때까지 닳을 내릴 곳을 다시는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INTRODUCTION

87:0.1 (958.1) THE ghost cult evolved as an offset to the hazards of bad luck; its primitive religious observances were the outgrowth of anxiety about bad luck and of the inordinate fear of the dead. None of these early religions had much to do with the recognition of Deity or with reverence for the superhuman; their rites were mostly negative, designed to avoid, expel, or coerce ghosts. The ghost cult was nothing more nor less than insurance against disaster; it had nothing to do with investment for higher and future returns.

87:0.2 (958.2) Man has had a long and bitter struggle with the ghost cult. Nothing in human history is designed to excite more pity than this picture of man's abject slavery to ghost-spirit fear. With the birth of this very fear mankind started on the upgrade of religious evolution. Human imagination cast off from the shores of self and will not again find anchor until it arrives at the concept of a true Deity, a real God.

제 1 장. 귀신에 대한 두려움

1. GHOST FEAR

죽음은 그 물리적인 몸체로부터 또 하나의 귀신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귀신과 투쟁하게 되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그 귀신을 설득하여 죽음의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죽은 자들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도록 만들려고 항상 애를 썼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한 기간은, 죽는 순간에 그것이 밖으로 나온 때로부터, 나중에 귀신의 고향 나라, 희미하고도 원시적인 개념의 거짓 천국으로 떠나게 되는 때까지로 추정되는 과도기이었다.

미개인들은 비록 귀신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신임하였지만, 초자연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 귀신들을 속이고 기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속임수들과 술책들이 실천되었다; 한편 문명인도 경건함의 길으로 나타나는 현시활동이 심지어는 전지(全知)하신 신(神)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다는 희망 위에 있는 많은 신앙에 여전히 얽매어 있다.

원시인들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죽음의 전조가 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부족의 주술사가 앓는 개별존재를 고치지 못하면, 대개는 환자를 가족들이 기거하는 오두막으로부터 옮겨서, 격리된 채로 죽을 수 있도록 보다 작은 오두막 또는 야외에 눕혀놓았다. 죽음이 발생했던 집은 대체로 파괴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항상 피해 다녔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고대인을 튼튼한 거처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또한 그것은 영구적인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개인들은 자기 씨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이야기하였다; 시체 근처에서 잠이 들면 자기들도 역시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시체로부터 전염된다는 생각이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켰고, 모든 민족들은 시체와 접촉한 개별존재를 정화시키도록 고안된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 때 채택했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시체에게 빛이 비춰져야만 한다고 믿었다; 시체를 어두운 장소에 방치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시체 안치실에 촛불을 켜놓고 있으며, 사람들이 시체를 지키고 있다. 소위 문명인이라는 사람들도 생명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을 속이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이 죽은 오두막을 부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체를 내갈 때, 문을 통하지 않고 벽에 구멍을 내어서 운반한다. 이러한 방법은 귀신을 혼동시키기 위해, 그것이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또한 애곡하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다른 길을 이용하였는데, 그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귀신이 무덤으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되돌아오는 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술책들이 실천되었다. 귀신을

87.1.1 (958.3) Death was feared because death meant the liberation of another ghost from its physical body. The ancients did their best to prevent death, to avoid the trouble of having to contend with a new ghost. They were always anxious to induce the ghost to leave the scene of death, to embark on the journey to deadland. The ghost was feared most of all during the supposed transition period between its emergence at the time of death and its later departure for the ghost homeland, a vague and primitive concept of pseudo heaven.

87.1.2 (958.4) Though the savage credited ghosts with supernatural powers, he hardly conceived of them as having supernatural intelligence. Many tricks and stratagems were practiced in an effort to hoodwink and deceive the ghosts; civilized man still pins much faith on the hope that an outward manifestation of piety will in some manner deceive even an omniscient Deity.

87.1.3 (958.5) The primitives feared sickness because they observed it was often a harbinger of death. If the tribal medicine man failed to cure an afflicted individual, the sick man was usually removed from the family hut, being taken to a smaller one or left in the open air to die alone. A house in which death had occurred was usually destroyed; if not, it was always avoided, and this fear prevented early man from building substantial dwellings. It also militated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villages and cities.

87.1.4 (958.6) The savages sat up all night and talked when a member of the clan died; they feared they too would die if they fell asleep in the vicinity of a corpse. Contagion from the corpse substantiated the fear of the dead, and all peoples, at one time or another, have employed elaborate purification ceremonies designed to cleanse an individual after contact with the dead. The ancients believed that light must be provided for a corpse; a dead body was never permitted to remain in the dark. In the twentieth century, candles are still burned in death chambers, and men still sit up with the dead. So-called civilized man has hardly yet completely eliminated the fear of dead bodies from his philosophy of life.

87.1.5 (959.1) But despite all this fear, men still sought to trick the ghost. If the death hut was not destroyed, the corpse was removed through a hole in the wall, never by way of the door. These measures were taken to confuse the ghost, to prevent its tarrying, and to insure against its return. Mourners also returned from a funeral by a different road, lest the ghost follow. Backtracking and scores of other tactics were practiced to insure that the ghost would not return from the grave. The sexes often exchanged clothes in order to deceive the ghost. Mourning costumes were

속이기 위해 남자와 여자의 옷을 서로 바꾸어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애곡하는 의상은 유족들을 변장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나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함으로써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제 2 장. 귀신 달래기

종교에 있어서, 귀신을 진정시키는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영을 뜻대로 움직이고 영에게 탄원하는 적극적인 강령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인간의 경배에 있어서 최초의 행위들은 존경이 아니라, 방어의 현상들이었다. 현대인에게는 화재를 막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미개인들은 귀신에 의한 불운을 막는 것이 보다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보호를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이 귀신 숭배의 기법들과 의식들을 제정하였다.

귀신의 큰 욕구를 신속하게 “가라앉힘”으로써 죽은 자들의 나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 때 지배적이었다. 그 귀신을 진정시키는 예식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태만한 행동이나 실수가, 그것이 귀신의 나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지연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것이 그 귀신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화난 귀신이 재난과 불운 그리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장례식은 귀신이 된 혼으로 하여금 미래의 고향을 향해 떠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기원되었으며, 장례식 훈계는 기원적으로 새로운 그 귀신이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그 귀신의 여행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무덤 속에 또는 가까운 곳에 놓여졌다. 미개인들은 “귀신을 달래는 데”—무덤 근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기까지—3일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 인들은 혼이 시체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믿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침묵을 지키거나 애곡하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올 흥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되었다. 자아-고문—상처—는 일반적인 애곡의 형태였다. 진보적인 많은 선생들은 이러한 행위를 없애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금식을 비롯한 다른 형태들의 자아-부정이 귀신들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귀신들이 죽은 자들의 나라로 실제적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숨어있는 과도기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또는 자주 애곡하는 일은 문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큰 요소들 중의 하나였다. 여러 주일 그리고 심지어는 매년 여러 달의 기간이, 정말로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곡하는 일에 소모되었다. 장례 행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애곡이 예식적인 것이었고 슬픔에 대한 징표가 아니었음을 설명해 준다.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그리고 사별(死別)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애곡하기도 하지만,

designed to disguise survivors; later on, to show respect for the dead and thus appease the ghosts.

2. GHOST PLACATION

87:2.1 (959.2) In religion the negative program of ghost placation long preceded the positive program of spirit coercion and supplication. The first acts of human worship were phenomena of defense, not reverence. Modern man deems it wise to insure against fire; so the savage thought it the better part of wisdom to provide insurance against ghost bad luck. The effort to secure this protection constituted the techniques and rituals of the ghost cult.

87:2.2 (959.3) It was once thought that the great desire of a ghost was to be quickly “laid” so that it might proceed undisturbed to deadland. Any error of commission or omission in the acts of the living in the ritual of laying the ghost was sure to delay its progress to ghostland. This was believed to be displeasing to the ghost, and an angered ghost was supposed to be a source of calamity, misfortune, and unhappiness.

87:2.3 (959.4) The funeral service originated in man's effort to induce the ghost soul to depart for its future home, and the funeral sermon was originally designed to instruct the new ghost how to get there. It was the custom to provide food and clothes for the ghost's journey, these articles being placed in or near the grave. The savage believed that it required from three days to a year to “lay the ghost” — to get it away from the vicinity of the grave. The Eskimos still believe that the soul stays with the body three days.

87:2.4 (959.5) Silence or mourning was observed after a death so that the ghost would not be attracted back home. Self-torture — wounds — was a common form of mourning. Many advanced teachers tried to stop this, but they failed. Fasting and other forms of self-denial were thought to be pleasing to the ghosts, who took pleasure in the discomfort of the liv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lurking about before their actual departure for deadland.

87:2.5 (959.6) Long and frequent periods of mourning inactivity were one of the great obstacles to civilization's advancement. Weeks and even months of each year were literally wasted in this nonproductive and useless mourning. The fact that professional mourners were hired for funeral occasions indicates that mourning was a ritual, not an evidence of sorrow. Moderns may mourn the dead out of respect and because of bereavement, but the ancients did this because of fear.

고대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들이 언어로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이름들은 금기가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들은 빈번하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 또는 날”과 같은, 상징적인 말과 비유적인 표현을 배가(倍加) 시키게 되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이였기 때문에 삶 속에서 희망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 값으로 바쳤다. 귀신들이 아내들과 종들을 원한다고 여겼으며; 어떤 부자 미개인은 자기가 죽을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노예 아내가 산채로 함께 매장될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는 과부가 자기 남편의 무덤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가 죽었을 때, 어른 귀신이 그 어린 귀신과 동행하면서 돌보아 주기 위해, 그 어머니나 숙모(고모, 이모) 또는 할머니가 목을 매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정말로 관습을 위반하여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원시인들이 누렸던 기쁨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삶을 귀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박탈하였던 것이다.

죽장이 죽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팔려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죽여서 귀신의 나라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보르네오 사람들은 아직도 동행자 안내자를 지명하고 있다; 노예 한 사람을 죽여서 죽은 주인과 함께 귀신의 여행에 동반하게 한다. 죽임을 당한 귀신들이 살인한 자들의 귀신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개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잘라오도록 만들었다.

귀신들이 음식의 냄새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례식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일이 한 때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음식을 먹기 전의 기도에 해당하는 원시적인 방법은 마술적인 문구를 중얼거리면서 음식 한 조각을 불에 던져 넣는 것이었는데, 영들을 달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죽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 소유하였던 도구들과 무기들의 귀신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여겼다. 계약을 파기시키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그 귀신이 귀신 나라에서의 봉사를 위하여 통과하도록 풀려나게 하였다. 또한 재물을 태우거나 묻음으로써 희생제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고대에는 장례식에서의 낭비가 심하였다. 후대의 종족들은 죽은 자를 위한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물건이나 사람들 대신에 종이로 모형들을 만들고 그림을 이용하였다. 재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대신에 친족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문명이 크게 진보되었다. 이로쿼이족 인디언들은 장례식에서의 낭비를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보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북부 지역의 적색 인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현대인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현세적인 많은 재물들이 아직도

87:2.6 (959.7) The names of the dead were never spoken. In fact, they were often banished from the language. These names became taboo, and in this way the languages were constantly impoverished. This eventually produced a multiplication of symbolic speech and figurative expression, such as “the name or day one never mentions.”

87:2.7 (960.1) The ancients were so anxious to get rid of a ghost that they offered it everything which might have been desired during life. Ghosts wanted wives and servants; a well-to-do savage expected that at least one slave wife would be buried alive at his death. It later became the custom for a widow to commit suicide on her husband's grave. When a child died, the mother, aunt, or grandmother was often strangled in order that an adult ghost might accompany and care for the child ghost. And those who thus gave up their lives usually did so willingly; indeed, had they lived in violation of custom, their fear of ghost wrath would have denuded life of such few pleasures as the primitives enjoyed.

87:2.8 (960.2) It was customary to dispatch a large number of subjects to accompany a dead chief; slaves were killed when their master died that they might serve him in ghostland. The Borneans still provide a courier companion; a slave is speared to death to make the ghost journey with his deceased master. Ghosts of murdered persons were believed to be delighted to have the ghosts of their murderers as slaves; this notion motivated men to head hunting.

87:2.9 (960.3) Ghosts supposedly enjoyed the smell of food; food offerings at funeral feasts were once universal. The primitive method of saying grace was, before eating, to throw a bit of food into the fire for the purpose of appeasing the spirits, while mumbling a magic formula.

87:2.10 (960.4) The dead were supposed to use the ghosts of the tools and weapons that were theirs in life. To break an article was to “kill it,” thus releasing its ghost to pass on for service in ghostland. Property sacrifices were also made by burning or burying. Ancient funeral wastes were enormous. Later races made paper models and substituted drawings for real objects and persons in these death sacrifices. It was a great advance in civilization when the inheritance of kin replaced the burning and burying of property. The Iroquois Indians made many reforms in funeral waste. And this conservation of property enabled them to become the most powerful of the northern red men. Modern man is not supposed to fear ghosts, but custom is strong, and much terrestrial wealth is still consumed on funeral rituals and death ceremonies.

장례 예식과 죽은 자에 대한 예식(禮式)에 소모되고 있다.

제 3 장. 조상 경배

귀신 예배종파의 진보에 따라 조상 경배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귀신과 보다 높은 영들, 진화하는 하느님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하느님들은 단순히 영화롭게 된 죽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조상 경배는 기원적으로 경배보다는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신앙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배를 더욱 퍼뜨리는 일에 확실하게 기여하였다. 초기 조상-귀신 예배종파를 신봉한 사람들은 하품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는데, 그러한 때에 해로운 귀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녀들을 양자로 삼는 관습은, 죽은 후에 그 혼의 평화와 진보를 위해 누군가가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미개인들은 자기 동료들의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으며, 죽은 이후의 자기 귀신의 안전한 행위를 계획하는 데에 여가 시간을 썼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전체-귀신들에 대한 축제를 시행하였다. 로마인들은 12가지의 귀신 축제를 행하였고 매 년 마다 예식을 올렸다. 한 해의 반 정도는 이러한 고대의 숭배와 연관된 여러 종류의 의식에 바쳐졌다. 어떤 로마 황제는 축제일들을 일 년에 135 일로 줄임으로써 이러한 실천 관행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귀신 예배종파는 계속 진화되었다. 귀신들이 미완(未完)의 상태로부터 보다 높은 위상의 실존으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귀신 예배종파는 결국에는 영들에 대한 경배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들에 대한 경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보다 진보된 영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들에는 상관없이, 모든 부족들과 종족들이 한 때 귀신을 믿었다.

제 4 장.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귀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세계적 종교의 근원이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부족들이 같은 종류의 귀신들에 대한 옛 믿음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귀신이 즐거울 때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귀신이 화날 때 불운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예배종파가 확대되자, 보다 높은 유형의 영들, 어떤 개별 인간과 명확하게 정체화되지 않는 영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그들은 귀신나라의 권역으로부터 진보하여 보다 높은 영의 나라로 졸업한 또는 영화롭게 된 귀신들이었다.

두 가지 종류의 영적(靈的) 귀신들에 대한 개념

3. ANCESTOR WORSHIP

87:3.1 (960.5) The advancing ghost cult made ancestor worship inevitable since it became the connecting link between common ghosts and the higher spirits, the evolving gods. The early gods were simply glorified departed humans.

87:3.2 (960.6) Ancestor worship was originally more of a fear than a worship, but such beliefs did definitely contribute to the further spread of ghost fear and worship. Devotees of the early ancestor-ghost cults even feared to yawn lest a malignant ghost enter their bodies at such a time.

87:3.3 (960.7) The custom of adopting children was to make sure that someone would provide offerings after death for the peace and progress of the soul. The savage lived in fear of the ghosts of his fellows and spent his spare time planning for the safe conduct of his own ghost after death.

87:3.4 (960.8) Most tribes instituted an all-souls' feast at least once a year. The Romans had twelve ghost feasts and accompanying ceremonies each year. Half the days of the year were dedicated to some sort of ceremony associated with these ancient cults. One Roman emperor tried to reform these practices by reducing the number of feast days to 135 a year.

87:3.5 (961.1) The ghost cult was in continuous evolution. As ghosts were envisioned as passing from the incomplete to the higher phase of existence, so did the cult eventually progress to the worship of spirits, and even gods. But regardless of varying beliefs in more advanced spirits, all tribes and races once believed in ghosts.

4. GOOD AND BAD SPIRIT GHOSTS

87:4.1 (961.2) Ghost fear was the fountainhead of all world religion; and for ages many tribes clung to the old belief in one class of ghosts. They taught that man had good luck when the ghost was pleased, bad luck when he was angered.

87:4.2 (961.3) As the cult of ghost fear expanded, there came about the recognition of higher types of spirits, spirits not definitely identifiable with any individual human. They were graduate or glorified ghosts who had progressed beyond the domain of ghostland to the higher realms of spiritland.

87:4.3 (961.4) The notion of two kinds of spirit ghosts

넘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영에 대한 새로운 체계는 부족에서 부족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발생되었다. 확대하는 진화적 마음에게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관념의 힘은 그것의 실체 또는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신속하고 단순한 적용의 생생함과 보편성에 있다.

훨씬 나중에 사람의 상상력은 선한 그리고 악한 초자연적 대리자 둘 모두의 개념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귀신들은 선한 영들의 차원으로 전혀 진화하지 못하였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일(單一) 영 체계는 점차적으로 이원적(二元的) 영 체계, 이 세상의 관련사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은 그들 각각의 통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두 계급들 중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쪽이 더욱 활동적이고 숫자도 더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리가 최종적으로 성숙되자, 모든 종교적 신앙에게 가장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원론(二元論)은 위대한 종교-철학적 진보를 대표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된 초인간적 존재들에 대해 동시적으로 믿는 한편, 행운과 불운 모두를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들은 선한 쪽이나 악한 쪽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가장 원시적인 종교들의 단일 영 체계의 초기 귀신들이 상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완벽하게 변덕스러운 존재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마침내 행실에 있어서 모순이 없는 초인간적인 기체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 철학의 확대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가장 중대한 발견들 중의 하나였다.

어쨌든, 진화적인 종교는 이원적(二元的)인 영 체계의 개념에 대한 심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사람의 초기 철학은, 오직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을 가정함으로써만 현세적인 행운의 변화와 영의 불변성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수의 변화무쌍함과 변하지 않는 초인간적 기체들에 대한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교리는 그 후로 계속 종교가들로 하여금 우주의 합일성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하느님들은 대개 어두움의 권세들에 의해서 대립되었다.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이 관념들이 사람의 원시적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악하거나 조화되지 않는 영들이 어느 세계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은 칼리가스티아의 반란 이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오순절까지만 지속되었다. 우주의 조화-협동을 이루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심지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철학 속에서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제적인 종교들 대부분은 창발 하는 귀신 숭배에 대한 오래 전의

made slow but sure progress throughout the world. This new dual spiritism did not have to spread from tribe to tribe; it sprang up independently all over the world. In influencing the expanding evolutionary mind, the power of an idea lies not in its reality or reasonableness but rather in its *vividness* and the universality of its ready and simple application.

87:4.4 (961.5) Still later the imagination of man envisioned the concept of both good and bad supernatural agencies; some ghosts never evolved to the level of good spirits. The early monospiritism of ghost fear was gradually evolving into a dual spiritism, a new concept of the invisible control of earthly affairs. At last good luck and bad luck were pictured as having their respective controllers. And of the two classes, the group that brought bad luck were believed to be the more active and numerous.

87:4.5 (961.6) When the doctrine of good and bad spirits finally matured, it became the most widespread and persistent of all religious beliefs. This dualism represented a great religio-philosophic advance because it enabled man to account for both good luck and bad luck while at the same time believing in supermortal beings who were to some extent consistent in their behavior. The spirits could be counted on to be either good or bad; they were not thought of as being completely temperamental as the early ghosts of the monospiritism of most primitive religions had been conceived to be. Man was at last able to conceive of supermortal forces that were consistent in behavior, and this was one of the most momentous discoveries of truth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and in the expansion of human philosophy.

87:4.6 (961.7) Evolutionary religion has, however, paid a terrible price for the concept of dual spiritism. Man's early philosophy was able to reconcile spirit constancy with the vicissitudes of temporal fortune only by postulating two kinds of spirits, one good and the other bad. And while this belief did enable man to reconcile the variables of chance with a concept of unchanging supermortal forces, this doctrine has ever since made it difficult for religionists to conceive of cosmic unity. The gods of evolutionary religion have generally been opposed by the forces of darkness.

87:4.7 (962.1) The tragedy of all this lies in the fact that, when these ideas were taking root in the primitive mind of man, there really were no bad or disharmonious spirits in all the world.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did not develop until after the Caligastic rebellion and only persisted until Pentecost. The concept of good and evil as cosmic co-ordinates is,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very much alive in human philosophy; most of the world's religions still carry this cultural

문화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birthmark of the long-gone days of the emerging ghost cults.

제 5 장. 진보하는 귀신 숭배

5. THE ADVANCING GHOST CULT

원시인은 영들과 귀신들이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 반면 의무는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며; 영들은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의무를 갖지만 권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여겼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실패할 때 영들에 의해서 무시당한다고 믿었다. 귀신들이 인간의 관련사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계속적인 봉사를 드리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인류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으며, 최소한의 불운이 귀신의 행위에 전가되었다. 초기의 인간들은 하느님들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명예를 빠뜨리는 것에 대해 너무나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알려진 모든 영들에게 희생 제물들을 바친 후에는, 속속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은 하느님들”에게도 다른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귀신 예배종파 뒤에는, 보다 진보되고 비교적 복잡한 영-귀신 예배종파의 관습, 사람의 원시적인 상상력 속에서 진화됨에 따른 보다 높은 영들에 대한 봉사와 경배가 생겨났다. 종교적인 의식 절차는 영의 진화와 진보에 보조를 맞추어야만 한다. 확대된 예배종파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실천되는 자아-유지, 영적 환경에 대한 자아-조절의 기술에 불과하다. 산업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체들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들에 대한 조절들이다. 그리고 양성(兩性)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이 발생되었듯이, 종교적인 조직은 보다 높은 영적 기세들과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진화하였다. 종교는 우연한 신비적 사건에서의 자신의 환상에 대한 사람의 조절을 나타낸다. 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경배는 불운에 대한 보험, 변형 정책으로써 채택되었다.

미개인들은, 선한 영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인간 존재들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악한 귀신들과 영들은 유쾌한 기분이 유지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그들의 고마운 영들보다는 악의에 찬 귀신들에게 더욱 관심을 쏟았다.

인간의 변명이 특별히 악한 영들의 질투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들이 보복하는 방법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그리고 악한 눈의 기법에 의해서 되받아 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의 기피와 밀접하였던 예배종파의 현상은 악한 눈의 음모와 관계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악한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베일로 가렸으며;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은 많은 여인들이 이러한 실천 관행을 채택하였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으며, 초기의 기도문들 속에는 “우리를 악한 눈

87:5.1 (962.2) Primitive man viewed the spirits and ghosts as having almost unlimited rights but no duties; the spirits were thought to regard man as having manifold duties but no rights. The spirits were believed to look down upon man as constantly failing in the discharge of his spiritual duties. It was the general belief of mankind that ghosts levied a continuous tribute of service as the price of noninterference in human affairs, and the least mischance was laid to ghost activities. Early humans were so afraid they might overlook some honor due the gods that, after they had sacrificed to all known spirits, they did another turn to the “unknown gods,” just to be thoroughly safe.

87:5.2 (962.3) And now the simple ghost cult is followed by the practices of the more advanced and relatively complex spirit-ghost cult, the service and worship of the higher spirits as they evolved in man's primitive imagination. Religious ceremonial must keep pace with spirit evolution and progress. The expanded cult was but the art of self-maintenance practiced in relation to belief in supernatural beings, self-adjustment to spirit environment. Industrial and military organizations were adjustments to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as marriage arose to meet the demands of bisexuality, so did religious organization evolve in response to the belief in higher spirit forces and spiritual beings. Religion represents man's adjustment to his illusions of the mystery of chance. Spirit fear and subsequent worship were adopted as insurance against misfortune, as prosperity policies.

87:5.3 (962.4) The savage visualizes the good spirits as going about their business, requiring little from human beings. It is the bad ghosts and spirits who must be kept in good humor. Accordingly, primitive peoples paid more attention to their malevolent ghosts than to their benign spirits.

87:5.4 (962.5) Human prosperity was supposed to be especially provocative of the envy of evil spirits, and their method of retaliation was to strike back through a human agency and by the technique of the *evil eye*. That phase of the cult which had to do with spirit avoidance was much concerned with the machinations of the evil eye. The fear of it became almost world-wide. Pretty women were veiled to protect them from the evil eye; subsequently many women who desired to be considered beautiful adopted this practice. Because of this fear of bad spirits, children were seldom allowed out after dark, and the early

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탄원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코란 속에는 한 장(章) 전체가 악한 눈과 마법 주문에 관계되는 글로 채워진 부분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전적으로 믿었다. 남근(男根) 숭배는 악한 눈에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형성되었다. 생식 기관들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물로 여겨졌다. 악한 눈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관련된 최초의 미신적 행위, 어머니를 따르도록 만들었으며, 그 예배종파는 한 때 거의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

질투심은 뿌리 깊은 인간적 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은 그것을 자기들의 초기 하느님들에도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사람은 한 때 귀신들을 속이는 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곧이어 영들을 속이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말하기를, “영들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흉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겸손은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는 영들을 따돌리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영들이 인간의 번영에 대해 질투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채택된 방법은, 행운을 가져온 또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쏟아 붓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에 관하여 칭찬하는 말을 알보는 관습은 이러한 식으로 기원되었다; 결국에는 예의바른 겸손과 사양 그리고 공손함으로 진화하였다. 동일한 동기에 따라서, 얼굴이 추하게 보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아름다움은 영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자부심의 전조가 되었다. 미개인들은 추한 이름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예배종파의 이러한 특징은 예술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으며, 오랫동안 세상을 침울하고 추하게 만들었다.

영 예배종파 밑에서, 삶은 기껏해야 하나의 도박, 영의 통제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사람의 미래는, 영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력이나 열심 또는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을 달래기 위한 예식들은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삶을 진저리나게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인종들이 이러한 초(超)귀신들에 관한 교리를 개선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그것을 전혀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영들의 목적과 뜻은 예언과 신(神)의 계시 그리고 표적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메시지들은 점(占), 예언적 마술, 괴로운 체험, 그리고 점성술에 의해서 해석되었다. 전체적인 예배종파는, 속임수에 의한 유혹을 통하여 영들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며 매수하도록 고안된 음모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그리고 확대된 세계적 철학들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발생되었다:

prayers always included the petition, “deliver us from the evil eye.”

87:5.5 (962.6) The Koran contains a whole chapter devoted to the evil eye and magic spells, and the Jews fully believed in them. The whole phallic cult grew up as a defense against the evil eye. The organs of reproduction were thought to be the only fetish which could render it powerless. The evil eye gave origin to the first superstitions respecting prenatal marking of children, maternal impressions, and the cult was at one time well-nigh universal.

87:5.6 (963.1) Envy is a deep-seated human trait; therefore did primitive man ascribe it to his early gods. And since man had once practiced deception upon the ghosts, he soon began to deceive the spirits. Said he, “If the spirits are jealous of our beauty and prosperity, we will disfigure ourselves and speak lightly of our success.” Early humility was not, therefore, debasement of ego but rather an attempt to foil and deceive the envious spirits.

87:5.7 (963.2) The method adopted to prevent the spirits from becoming jealous of human prosperity was to heap vituperation upon some lucky or much loved thing or person. The custom of depreciating complimentary remarks regarding oneself or family had its origin in this way, and it eventually evolved into civilized modesty, restraint, and courtesy. In keeping with the same motive, it became the fashion to look ugly. Beauty aroused the envy of spirits; it betokened sinful human pride. The savage sought for an ugly name. This feature of the cult was a great handicap to the advancement of art, and it long kept the world somber and ugly.

87:5.8 (963.3) Under the spirit cult, life was at best a gamble, the result of spirit control. One's future was not the result of effort, industry, or talent except as they might be utilized to influence the spirits. The ceremonies of spirit propitiation constituted a heavy burden, rendering life tedious and virtually unendurable. From age to age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race after race has sought to improve this superghost doctrine, but no generation has ever yet dared to wholly reject it.

87:5.9 (963.4) The intention and will of the spirits were studied by means of omens, oracles, and signs. And these spirit messages were interpreted by divination, soothsaying, magic, ordeals, and astrology. The whole cult was a scheme designed to placate, satisfy, and buy off the spirits through this disguised bribery.

87:5.10 (963.5) And thus there grew up a new and expanded world philosophy consisting in:

1. 의무—영으로 하여금 적어도 중간 위치에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

2. 권리—영을 적극적으로 이겨서 유익이 되도록 계획된 온당한 행위성과 예식.

3. 진리—영에 대한 정확한 납득과, 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고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알고자 하였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불운을 피하기를 원하였다. 점(占)은 단순히 재난을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시대 동안에는, 꿈이 예언으로 간주된 반면, 일상적이 아닌 모든 것들이 어떤 징조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문명화된 종족들도 징후들과 표시들 그리고 옛날의 발전하는 귀신 예배종파의 다른 미신적 잔재들에 대한 믿음으로 저주를 받고 있다. 서서히, 매우 느리게, 사람은 그러한 방법들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진화적인 생명의 계단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고생하면서 올라갔다.

제 6 장. 강제 퇴거와 축귀(逐鬼)

사람들이 귀신만을 믿었을 때에는, 종교 예식이 더욱 개인적인 반면, 보다 약하게 조직되어 있었지만, 높은 영들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높은 영적 방법들”이 채택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는 영들에 대항하는 방어책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였다. 사람은 현세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기체들 앞에서 정말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음을 느꼈으며, 그의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어떤 보상하는 조절 방법, 우주에 대한 사람의 일방적인 투쟁 속에서 불평등을 없애주는 어떤 기법을 발견하는 시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한 예배종파의 초기 시대에, 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의 노력들은 달래는 일,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불운을 면하기 위한 유혹에 의한 시도들에 제한되어 있었다. 귀신 예배종파의 진화가 선한 영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으로 진보되자, 이러한 예식들은 더욱 긍정적인 성질의 시도를 쪽으로,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더 이상 완벽하게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었다; 곧 계략들을 발명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영이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발명하는 영의 환영들의 끊임없는 요구들 앞에서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지 않게 되었다; 그 미개인은 영의 활동을 지배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들을 발명하기 시작하였다.

방어에 있어서 사람의 최초의 노력들은 영들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여러 시대들이

87:5.11 (963.6) 1. *Duty* — those things which must be done to keep the spirits favorably disposed, at least neutral.

87:5.12 (963.7) 2. *Right* — the correct conduct and ceremonies designed to win the spirits actively to one's interests.

87:5.13 (963.8) 3. *Truth* —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 toward, spirits, and hence toward life and death.

87:5.14 (963.9) It was not merely out of curiosity that the ancients sought to know the future; they wanted to dodge ill luck. Divination was simply an attempt to avoid trouble. During these times, dreams were regarded as prophetic, while everything out of the ordinary was considered an omen. And even today the civilized races are cursed with the belief in signs, tokens, and other superstitious remnants of the advancing ghost cult of old. Slow, very slow, is man to abandon those methods whereby he so gradually and painfully ascended the evolutionary scale of life.

6. COERCION AND EXORCISM

87:6.1 (963.10) When men believed in ghosts only, religious ritual was more personal, less organized, but the recognition of higher spirits necessitated the employment of “higher spiritual methods” in dealing with them. This attempt to improve upon, and to elaborate, the technique of spirit propitiation led directly to the creation of defenses against the spirits. Man felt helpless indeed before the uncontrollable forces operating in terrestrial life, and his feeling of inferiority drove him to attempt to find some compensating adjustment, some technique for evening the odds in the one-sided struggle of man versus the cosmos.

87:6.2 (964.1) In the early days of the cult, man's efforts to influence ghost action were confined to propitiation, attempts by bribery to buy off ill luck. As the evolution of the ghost cult progressed to the concept of good as well as bad spirits, these ceremonies turned toward attempts of a more positive nature, efforts to win good luck. Man's religion no longer was completely negativistic, nor did he stop with the effort to win good luck; he shortly began to devise schemes whereby he could compel spirit co-operation. No longer does the religionist stand defenseless before the unceasing demands of the spirit phantasms of his own devising; the savage is beginning to invent weapons wherewith he may coerce spirit action and compel spirit assistance.

87:6.3 (964.2) Man's first efforts at defense were directed against the ghosts. As the ages passed,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기법들을 고안해 내기 시작하였다. 영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멀리 쫓아버리기 위하여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1.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무덤 속에 묶어둠.
2. 사람이 죽은 집에 돌을 던짐.
3. 시체의 다리를 제거하거나 부러뜨림.
4. 돌 밑에 묻음, 현대적인 묘비의 기원 중의 하나임.
5. 화장(火葬), 귀신에 의한 재난을 막기 위해 나중에 발명되었음.
6. 시체를 바다에 던짐.
7. 시체를 방치하여 야생 동물들이 뜯어먹게 함.

귀신들이 소음에 의해서 교란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하였다; 고향소리와 종소리 그리고 북소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내쫓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고대의 방법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우는” 곳에서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영들을 내쫓기 위하여 악취를 뿜는 조제물이 이용되었다. 영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재빨리 도망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귀신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개들이 감지할 수 있고, 짖어댐으로써 경고를 준다고 믿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수탉들이 운다고 믿었다. 수탉의 모양을 풍향기에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미신이 영속하는 것이다.

물은 귀신들을 대항하는 최고의 보호책으로 간주되었다. 거룩한 물은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우월하였는데, 그 물은 사제들이 발을 씻은 것이었다. 불과 물은 모두 귀신들에게 지나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믿었다. 로마인들은 물을 가지고 시체 주위를 세 번 돌았다; 20세기에 있어서는 시체 위에 성수(聖水)를 뿌리고 있고, 묘지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예식 행사로 남아있다. 세례는 물로 하는 후대의 의식 행사의 한 부분이었다; 원시 시대의 목욕은 종교적인 예식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목욕이 위생적인 실천 관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은 귀신을 강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종교적인 의식과 다른 실천 관행들을 통하여 영의 활동을 강요하려고 곧 시도하였다. 축귀(逐鬼)는 어떤 한 영을 채택하여 다른 영을 통제하거나 추방시키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술책들은 귀신들과 영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선한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에 대한 이원적(二元的)-영-체계 개념은 한 쪽 대리자와 다른 편을 싸움 불이도록 시도하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하였는데, 왜냐하면, 만일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강한 영이 열등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

the living began to devise methods of resisting the dead. Many techniques were developed for frightening ghosts and driving them away, among which may be cited the following:

- 87:6.4 (964.3) 1. Cutting off the head and tying up the body in the grave.
- 87:6.5 (964.4) 2. Stoning the death house.
- 87:6.6 (964.5) 3. Castration or breaking the legs of the corpse.
- 87:6.7 (964.6) 4. Burying under stones, one origin of the modern tombstone.
- 87:6.8 (964.7) 5. Cremation, a later-day invention to prevent ghost trouble.
- 87:6.9 (964.8) 6. Casting the body into the sea.
- 87:6.10 (964.9) 7. Exposure of the body to be eaten by wild animals.

87:6.11 (964.10) Ghosts were supposed to be disturbed and frightened by noise; shouting, bells, and drums drove them away from the living; and these ancient methods are still in vogue at “wakes” for the dead. Foul-smelling concoctions were utilized to banish unwelcome spirits. Hideous images of the spirits were constructed so that they would flee in haste when they beheld themselves. It was believed that dogs could detect the approach of ghosts, and that they gave warning by howling; that cocks would crow when they were near. The use of a cock as a weather vane is in perpetuation of this superstition.

87:6.12 (964.11) Water was regarded as the best protection against ghosts. Holy water was superior to all other forms, water in which the priests had washed their feet. Both fire and water were believed to constitute impassable barriers to ghosts. The Romans carried water three times around the corps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body is sprinkled with holy water, and hand washing at the cemetery is still a Jewish ritual. Baptism was a feature of the later water ritual; primitive bathing was a religious ceremony. Only in recent times has bathing become a sanitary practice.

87:6.13 (964.12) But man did not stop with ghost coercion; through religious ritual and other practices he was soon attempting to compel spirit action. Exorcism was the employment of one spirit to control or banish another, and these tactics were also utilized for frightening ghosts and spirits. The dual-spiritism concept of good and bad forces offered man ample opportunity to attempt to pit one agency against another, for, if a powerful man could vanquish a weaker one, then certainly a strong spirit could dominate an inferior ghost. Primitive cursing was a coercive practice designed to overawe minor spirits. Later this

문이다. 원시적인 형태의 저주는 낮은 계급의 영들을 겁주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강제적인 실천 관행이었다. 나중에는 이러한 관습이 확대되어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

보다 오래된 사회관례의 풍습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영들과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존재들로 하여금 강제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현대인도 똑같은 과정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일상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평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지나간 세대의 옛날 문체, 소위 엄숙한 문체라고 불리는 형태를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전에서의 매춘과 같은, 많은 성(性) 자연본능의 종교적-의식이 복귀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원시 관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많은 재난들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보호 조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들 단순한-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현대인들이 난잡하다고 부르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예식적인 맹세들이 생겼고, 곧 그 뒤를 이어서 종교적인 서약과 신성한 맹세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맹세들 대부분은 자아-고문과 자아-학대의 행위를 동반하였다; 나중에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되었다. 나중에는 자아-부정이 틀림없는 강압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성(性) 억제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실천 관행에 있어서 단호한 금욕 생활을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원하지 않는 영들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고난과 궁핍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반응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예식에는, 자아-고문과 자아-부정이 효험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현대인은 더 이상 드러내 놓고 영들을 강요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神)과 흥정하려는 기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겹쳐 보이고, 침을 뱉으면서 어떤 진부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한 때 마술적인 처방(處方)이었다.

제 7 장. 예배종파주의의 본성

사회 조직체에서의 예배종파 유형은 계속 유지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 정서와 종교적 충성의 보존과 격려를 위한 상징성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예배종파는 “옛 가족들”의 전통들로부터 발생되고 확립된 제도로서 계속 영속하였다; 모든 가정들은 어떤 종류의 예배종파를 간직하고 있다. 영감을 주는 모든 이상(理想)은 영속하는 어떤 상징표현을 붙잡으려고 한다.—생존을 보장하고 실현을 증강시키게 되는 문화적 현시활동을 위한 어떤 기법을 추구한다. 예배종파는 감정을 조성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성취한다.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사회적인 문화 또는 종교적인 진보에 있어서의 모든 매력적인 움직임

custom expanded into the pronouncing of curses upon enemies.

87:6.14 (965.1) It was long believed that by reverting to the usages of the more ancient mores the spirits and demigods could be forced into desirable action. Modern man is guilty of the same procedure. You address one another in common, everyday language, but when you engage in prayer, you resort to the older style of another generation, the so-called solemn style.

87:6.15 (965.2) This doctrine also explains many religious-ritual reversions of a sex nature, such as temple prostitution. These reversions to primitive customs were considered sure guards against many calamities. And with these simple-minded peoples all such performances were entirely free from what modern man would term promiscuity.

87:6.16 (965.3) Next came the practice of ritual vows, soon to be followed by religious pledges and sacred oaths. Most of these oaths were accompanied by self-torture and self-mutilation; later on, by fasting and prayer. Self-denial was subsequently looked upon as being a sure coercive;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he matter of sex suppression. And so primitive man early developed a decided austerity in his religious practices, a belief in the efficacy of self-torture and self-denial as rituals capable of coercing the unwilling spirits to react favorably toward all such suffering and deprivation.

87:6.17 (965.4) Modern man no longer attempts openly to coerce the spirits, though he still evinces a disposition to bargain with Deity. And he still swears, knocks on wood, crosses his fingers, and follows exhortation with some trite phrase; once it was a magical formula.

7. NATURE OF CULTISM

87:7.1 (965.5) The cult type of social organization persisted because it provided a symbolism for the preservation and stimulation of moral sentiments and religious loyalties. The cult grew out of the traditions of “old families” and was perpetuated as an established institution; all families have a cult of some sort. Every inspiring ideal grasps for some perpetuating symbolism — seeks some technique for cultural manifestation which will insure survival and augment realization — and the cult achieves this end by fostering and gratifying emotion.

87:7.2 (965.6) From the dawn of civilization every appealing movement in social culture or religious

이 예식, 상징적인 예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예식이 무의식적인 성장을 더욱 이룩하면 할수록,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예배종파는 정서를 보호하고 감정을 만족시켰지만, 사회적인 부흥과 영적인 진보에는 언제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예배종파가 사회적인 진보를 항상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표준과 영적 이상을 믿는 매우 많은 현대인들이 적당한 상징 표현, 아무 소속될만한 것이 없다—서로를 후원하는 예배종파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종교적 예배종파는 제작될 수 없다; 그것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예식이 권한에 의해 독단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두 집단도 동일시될 수 없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그 때까지 생각해 내거나 고안해 내었던 어떤 예식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며 영구적인 것이었지만, 그 대부분의 가치는 너무 많은 기원적이고 바탕을 이루는 교리들의 파멸로 인하여 과학적 시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왔다.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많은 근본적인 관념들을 잃음으로써 생명력을 계속 잃어 왔다.

과거에, 예배종파가 신축성이 있을 때, 상징 표현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진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되었다. 풍부한 진리와 조절할 수 있는 예배종파는 사회의 진보가 빨라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의미한 예배종파은, 그것이 철학을 대체하고 이성(理性)을 노예로 만들려고 애쓸 때, 종교를 망친다; 진정한 예배종파는 자라난다.

결점들과 불리한 조건들에 상관없이, 진리에 대한 모든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예배종파 단체가 발생되게 하며, 심지어 예수의 종교에 대한 수정도 새롭고도 적절한 상징 표현을 발전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현대인은 자신의 새롭고도 확대하는 관념들과 이상들과 충성심들에 맞는 어떤 상징표현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러한 증진된 상징은 반드시 종교적인 삶,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발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다 높은 문명의 높은 상징표현은,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에 입각해야만 하며,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강력한 이상(理想)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

옛날의 예배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사랑의 적용으로부터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옛날의 예배종파와 마찬가지로, 정서를 육성하고 감정을 만족시키며 충성심을 증진시켜야만 하지만, 그 이상(以上)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진보를 촉진시켜야만 하고, 조화우주적 의미들을 증진시켜야만 하고, 도덕적 가치들을 증강시켜야만 하고, 사회적인 발전을 장려해야만 하고 높은 유형의 개인적인 종교적 생활을 고무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예배종파는 현세와 영원한 세계 모두—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에게 해당되는 삶의 최극 목표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어떤 예배종파도, 그것이 가정(家庭)에 대한

advancement has developed a ritual, a symbolic ceremonial. The more this ritual has been an unconscious growth, the stronger it has gripped its devotees. The cult preserved sentiment and satisfied emotion, but it has always been the greatest obstacle to social reconstruction and spiritual progress.

87.7.3 (965.7) Notwithstanding that the cult has always retarded social progress, it is regrettable that so many modern believers in moral standards and spiritual ideals have no adequate symbolism — no cult of mutual support — nothing to *belong* to. But a religious cult cannot be manufactured; it must grow. And those of no two groups will be identical unless their rituals are arbitrarily standardized by authority.

87.7.4 (965.8) The early Christian cult was the most effective, appealing, and enduring of any ritual ever conceived or devised, but much of its value has been destroyed in a scientific age by the destruction of so many of its original underlying tenets. The Christian cult has been devitalized by the loss of many fundamental ideas.

87.7.5 (965.9) In the past, truth has grown rapidly and expanded freely when the cult has been elastic, the symbolism expansile. Abundant truth and an adjustable cult have favored rapidity of social progression. A meaningless cult vitiates religion when it attempts to supplant philosophy and to enslave reason; a genuine cult grows.

87.7.6 (966.1) Regardless of the drawbacks and handicaps, every new revelation of truth has given rise to a new cult, and even the restatement of the religion of Jesus must develop a new and appropriate symbolism. Modern man must find some adequate symbolism for his new and expanding ideas, ideals, and loyalties. This enhanced symbol must arise out of religious living, spiritual experience. And this higher symbolism of a higher civilization must be predicated on the concept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be pregnant with the mighty ideal of the brotherhood of man.

87.7.7 (966.2) The old cults were too egocentric; the new must be the outgrowth of applied love. The new cult must, like the old, foster sentiment, satisfy emotion, and promote loyalty; but it must do more: It must facilitate spiritual progress, enhance cosmic meanings, augment moral values, encourage social development, and stimulate a high type of personal religious living. The new cult must provide supreme goals of living which are both temporal and eternal — social and spiritual.

87.7.8 (966.3) No cult can endure and contribute to

생물학적, 사회적, 종교적 의의(意義)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문명과 개별적인 영적 달성의 진보를 허용하고 그에 기여할 수 없다. 계속 살아남는 예배종파는 끊임없는 변화의 현존 속에서 영원한 것을 상징화 시켜야만 한다;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변형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찬미해야만 한다. 그것은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강화시키며, 실제적 숭고함의 선한 가치들에게 영광을 찬미해야만 한다.

그러나 새롭고도 만족스러운 상징표현을 발견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현대인들이 집단적으로는 과학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미신을 피하며 무지함을 멸시하는 반면, 개별존재로는 모두 신비를 갈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예배종파도 어떤 능수능란한 신비성을 체험하고 어떤 달성할 수 없는 값진 것을 감추고 있지 않는 한 살아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징표현은 그 집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별존재에게도 의의(意義)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모든 봉사할 수 있는 상징표현의 형태들은, 개별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개인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만약에 새로운 그 예배종파가 정지된 상태 대신에 역동적인 상태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실제로 훌륭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배종파—예식이나 표어 또는 목표의 상징표현—은 만약에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요청, 충성심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모든 효력적인 종교는 반드시 훌륭한 상징표현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식이 모든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진보를 지연시키고 방해시킬 뿐인, 속박하고 추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진부한 예식이 되는 결정화(結晶化)되는 일이 방지되도록 잘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예배종파도, 그것이 도덕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적 진보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예배종파는 그 둘레에서 개인성의 영적 체험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몸체- 참된 종교가 자라는 뼈대이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the progress of social civilization and individual spiritual attainment unless it is based on the biologic, sociologic, and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home*. A surviving cult must symbolize that which is permanent in the presence of unceasing change; it must glorify that which unifies the stream of ever-changing social metamorphosis. It must recognize true meanings, exalt beautiful relations, and glorify the good values of real nobility.

87:7.9 (966.4) But the great difficulty of finding a new and satisfying symbolism is because modern men, as a group, adhere to the scientific attitude, eschew superstition, and abhor ignorance, while as individuals they all crave mystery and venerate the unknown. No cult can survive unless it embodies some masterful mystery and conceals some worthful unattainable. Again, the new symbolism must not only be significant for the group but also meaningful to the individual. The forms of any serviceable symbolism must be those which the individual can carry out on his own initiative, and which he can also enjoy with his fellows. If the new cult could only be dynamic instead of static, it might really contribute something worth while to the progress of mankind, both temporal and spiritual.

87:7.10 (966.5) But a cult — a symbolism of rituals, slogans, or goals — will not function if it is too complex. And there must be the demand for devotion, the response of loyalty. Every effective religion unerringly develops a worthy symbolism, and its devotees would do well to prevent the crystallization of such a ritual into cramping, deforming, and stifling stereotyped ceremonials which can only handicap and retard all social, moral, and spiritual progress. No cult can survive if it retards moral growth and fails to foster spiritual progress. The cult is the skeletal structure around which grows the living and dynamic body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 true religion.

87:7.11 (966.6)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8 편 주물숭배, 부적과 마술

⇨ 087

유랜시아 책

08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8 편 주물숭배, 부적과 마술

섹션

소개

제 1 장. 주물(呪物)에 대한 믿음

제 2 장. 주물숭배의 진화

제 3 장. 토렘 숭배

제 4 장. 마술

제 5 장. 마술적인 부적(符籙)

제 6 장. 마술의 실천 관행

PAPER 88

FETISHES, CHARMS, AND MAGIC

SECTIONS

Introduction

1. Belief in Fetishes

2. Evolution of the Fetish

3. Totemism

4. Magic

5. Magical Charms

6. The Practice of Magic

소개

영이 무생물이나 동물 또는 인간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매우 옛날에 생겨난 훌륭한 신념이었는데, 종교가 진화하는 시초부터 보편화 되어 왔다. 영을 소유한다는 이러한 교리는 주물 숭배에 지나지 않았다. 야만인들은 필연적으로 주물(呪物)을 경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을 매우 논리적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존경한다.

처음에는, 주물에 들어 있는 영이 죽은 사람의 귀신이라고 믿었다; 나중에는, 보다 높은 영들이 주물들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였다. 그리하여 주물숭배는 결국에는, 귀신들과 혼들 그리고 영들과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원시적인 관념들 모두와 합쳐졌다.

INTRODUCTION

88:0.1 (967.1) THE concept of a spirit's entering into an inanimate object, an animal, or a human being, is a very ancient and honorable belief, having prevail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This doctrine of spirit possession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fetishism*. The savage does not necessarily worship the fetish; he very logically worships and reverences the spirit resident therein.

88:0.2 (967.2) At first, the spirit of a fetish was believed to be the ghost of a dead man; later on, the higher spirits were supposed to reside in fetishes. And so the fetish cult eventually incorporated all of the primitive ideas of ghosts, souls, spirits, and demon possession.

제 1 장. 주물(呪物)에 대한 믿음

원시인은 색다른 모든 것들을 항상 주물로 여기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무엇인가가 발생하여, 그 병이 나았다.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평판과 병을 고치는 우연에 의한 방법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꿈과 관련된 대상

1. BELIEF IN FETISHES

88:1.1 (967.3) Primitive man always wanted to make anything extraordinary into a fetish; chance therefore gave origin to many. A man is sick, something happens, and he gets well. The same thing is true of the reputation of many medicines and the chance methods of treating disease.

물들도 마찬가지로 주물들로 전환된다. 산들이 아니라 화산들이 주물들로 바뀌었다; 별들이 아니라 혜성들이 주물들로 바뀌었다. 초기 사람은, 유성들과 운석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특별한 영들의 도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초의 주물들은 특별하게 두드러진 모양의 조약돌들이었고, 사람은 그 후로 항상 “신성한 돌들”을 찾아다녔으며; 한 줄로 꿰 구슬 모양은 한 때 신성한 돌들을 수집한 한 벌의 마법의 장식물이었다. 많은 부족들이 돌로 된 주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카바 신전과 스콘의 돌처럼 보존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불과 물 역시 초기 주물들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불에 대한 경배는 성스러운 물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나무를 주물로 섬기는 것이 나중에 발전되었지만,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자연 경배가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써, 어떤 종류의 자연의 영이 마법의 장식물들 속에 거주하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다. 식물들과 과일들이 주물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금기가 된 음식이 되었다. 사과를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 최초의 것들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레반트 민족들은 그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

만약에 어떤 동물이 사람의 살을 먹으면, 그 동물은 주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는 파시 교도들에게 신성한 동물이 되었다. 만약에 그 주물이 동물이고 그 귀신이 그 속에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면, 주물숭배가 윤회와 충돌될 것이다. 미개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들은 동물들보다 우월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짐승들과 비슷하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동물들이 주물들로 여겨지게 되면, 주물이 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기가 뒤따라 나타났다. 꼬리 없는 원숭이들과 꼬리 있는 원숭이들은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물로 여겨지는 동물들이 되었다; 나중에는 뱀과 새 그리고 돼지가 비슷하게 간주하였다. 한때는 암소가 주물이 되면서, 우유가 금기로 되었으며 반면 그 배설물이 높이 존중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뱀을 존경되었고, 특별히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러하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좇아서 그것을 악한 영들의 대변자로 간주하였다.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인도 전역을 지나 적색 인종들의 모키 부족의 뱀 춤에 이르기까지, 뱀이 존경을 받아왔다.

한 주일 중에서 어떤 날들이 주물이 되기도 하였다. 금요일은 오랜 세월 동안 불운한 날로 여겨져 왔으며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행운의 숫자 3과 7은 후대의 계시들로부터 유래되었다; 4는 원시인에게 행운의 숫자였고 네 지점의 둘레에 대한 초기의 인식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가축이나 다른 소유물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겼으며, 고대의 사람들은 인구조사, “민족의 숫자를 세는 것”을 항상 반대하였다.

원시인은 성(性)에 대해 과도한 주물을 만들지 않았다; 생식 기능은 한정된 관심만을 받았을

Objects connected with dreams were likely to be converted into fetishes. Volcanoes, but not mountains, became fetishes; comets, but not stars. Early man regarded shooting stars and meteors as indicating the arrival on earth of special visiting spirits.

88:1.2 (967.4) The first fetishes were peculiarly marked pebbles, and “sacred stones” have ever since been sought by man; a string of beads was once a collection of sacred stones, a battery of charms. Many tribes had fetish stones, but few have survived as have the Kaaba and the Stone of Scone. Fire and water were also among the early fetishes, and fire worship, together with belief in holy water, still survives.

88:1.3 (967.5) Tree fetishes were a later development, but among some tribes the persistence of nature worship led to belief in charms indwelt by some sort of nature spirit. When plants and fruits became fetishes, they were taboo as food. The apple was among the first to fall into this category; it was never eaten by the Levantine peoples.

88:1.4 (967.6) If an animal ate human flesh, it became a fetish. In this way the dog came to be the sacred animal of the Parsees. If the fetish is an animal and the ghost is permanently resident therein, then fetishism may impinge on reincarnation. In many ways the savages envied the animals; they did not feel superior to them and were often named after their favorite beasts.

88:1.5 (967.7) When animals became fetishes, there ensued the taboos on eating the flesh of the fetish animal. Apes and monkeys, because of resemblance to man, early became fetish animals; later, snakes, birds, and swine were also similarly regarded. At one time the cow was a fetish, the milk being taboo while the excreta were highly esteemed. The serpent was revered in Palestine, especially by the Phoenicians, who, along with the Jews, considered it to be the mouthpiece of evil spirits. Even many moderns believe in the charm powers of reptiles. From Arabia on through India to the snake dance of the Moqui tribe of red men the serpent has been revered.

88:1.6 (968.1) Certain days of the week were fetishes. For ages Friday has been regarded as an unlucky day and the number thirteen as an evil numeral. The lucky numbers three and seven came from later revelations; four was the lucky number of primitive man and was derived from the early recognition of the four points of the compass. It was held unlucky to count cattle or other possessions; the ancients always opposed the taking of a census, “numbering the people.”

88:1.7 (968.2) Primitive man did not make an undue fetish out of sex; the reproductive function received

뿐이었다. 미개인은 꾸밈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였고, 음란하거나 호색적이지 않았다.

침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마귀들이 쫓겨난다고 여겼다. 노인이나 상급자에게는 침을 뱉는 것이 최고의 인사였다. 사람의 신체 부위들은 잠재적인 주물로 여겨졌는데, 특별히 머리카락과 손톱이 그러하였다. 족장들의 길게 자란 손톱은 고귀하게 여겨졌으며, 그것을 다듬고 남은 조각들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해골을 주물로 여기는 믿음은 머리를 자르는 후대의 행위를 많이 설명해 준다. 땃줄은 아주 높이 평가되는 주물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인류의 최초의 노리개는 버리지 않고 모아둔 땃줄이었다. 진주 모양의 작은 알로 장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최초의 목걸이었다.

곰사 등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주물로 간주되었다; 정신 이상자들은 달빛의 작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 원시인은 특수한 재능과 정신병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정신박약아들은 맞아죽거나 아니면 주물 개인성으로 존경되었다. 광란은 마법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 간질 환자들이 사제와 주술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영에 사로잡힌 형태로 간주되었다; 미개인이 실컷 마셨을 때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머리에 나뭇잎을 꽂았다. 독물과 마취제가 주물이 되었다; 그것에 홀리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천재들을 현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힌 개인성들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곧 자기 행위와 속임수를 익히게 되었다. 주물로 취급되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겨졌으며; 신성한 존재로 또는 심지어 절대로 오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족장들, 왕들, 사제들,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의 통치자들이 그러하였으며, 결국에는 엄청난 힘을 휘둘렀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제 2 장. 주물숭배의 진화

귀신들이 육체 속에서 살아있었을 당시에 자기들에게 속하였던 어떤 물체 속에 계속 거주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유품들이 간직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영도자들의 뼈를 항상 존경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성인(聖人)들과 영웅들의 유골을 여전히 미신적인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늘날에도 위대한 사람들의 묘지를 찾는 순례여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품들에 대한 믿음은 고대의 주물숭배로부터 파생되었다. 현대 종교들의 역사적 유물은 미개인들의 주물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현대의 종교 체계 속에서 존엄과 존중대상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이다. 주물과 마술을 믿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지만, 유물과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

only a limited amount of attention. The savage was natural minded, not obscene or prurient.

88:1.8 (968.3) Saliva was a potent fetish; devils could be driven out by spitting on a person. For an elder or superior to spit on one was the highest compliment. Parts of the human body were looked upon as potential fetishes, particularly the hair and nails. The long-growing fingernails of the chiefs were highly prized, and the trimmings thereof were a powerful fetish. Belief in skull fetishes accounts for much of later-day head-hunting. The umbilical cord was a highly prized fetish; even today it is so regarded in Africa. Mankind's first toy was a preserved umbilical cord. Set with pearls, as was often done, it was man's first necklace.

88:1.9 (968.4) Hunchbacked and crippled children were regarded as fetishes; lunatics were believed to be moon-struck. Primitive man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genius and insanity; idiots were either beaten to death or revered as fetish personalities. Hysteria increasingly confirmed the popular belief in witchcraft; epileptics often were priests and medicine men. Drunkenness was looked upon as a form of spirit possession; when a savage went on a spree, he put a leaf in his hair for the purpose of disavowing responsibility for his acts. Poisons and intoxicants became fetishes; they were deemed to be possessed.

88:1.10 (968.5) Many people looked upon geniuses as fetish personalities possessed by a wise spirit. And these talented humans soon learned to resort to fraud and trickery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selfish interests. A fetish man was thought to be more than human; he was divine, even infallible. Thus did chiefs, kings, priests, prophets, and church rulers eventually wield great power and exercise unbounded authority.

2. EVOLUTION OF THE FETISH

88:2.1 (968.6) It was a supposed preference of ghosts to indwell some object which had belonged to them when alive in the flesh. This belief explains the efficacy of many modern relics. The ancients always revered the bones of their leaders, and the skeletal remains of saints and heroes are still regarded with superstitious awe by many. Even today, pilgrimages are made to the tombs of great men.

88:2.2 (968.7) Belief in relics is an outgrowth of the ancient fetish cult. The relics of modern religions represent an attempt to rationalize the fetish of the savage and thus elevate it to a place of dignity and respectability in the modern religious systems. It is heathenish to believe in fetishes and magic but supposedly all right to accept relics and miracles.

고 있다.

화로(火爐)—벽난로—는 어느 정도 주물,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묘지들과 신전들이 최초의 미신적 숭배 대상 지역이 된 것은 시체들이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숭배하던 장막은 모세에 의해서 더욱 고상한 경지로 높여져서 초월적인, 그 당시에 실존하던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개념의 주물이 간직된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만든 제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나안-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의 영이, 실체 안에서 주물에 불과한, 그러한 돌 제단 속에 거하신다고 정말로 믿었다.

최초의 상징들은 유명한 죽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념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시인들은 헌납 예식을 통하여 영이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부적이 되었다.

모세는, 달라마시아에서 통용되었던 고대의 도덕적 규약에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면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자행되던 주물숭배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물로 신성시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지도하였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을 날거나 땅 위에 기어 다니거나 또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계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예술을 매우 퇴보시켰지만, 주물 경배는 줄여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현명하였기 때문에 옛 주물들을 갑작스럽게 버리도록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인 성물함(聖物函)인 동시에 전쟁을 위한 제단이었던 상자 속에 율법과 함께 특정한 유품들을 넣도록 승낙하였다.

말씀이 결국에는 주물들이 되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더욱 특별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종교들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사람의 영적 상상력을 가두어 놓는 미신적인 감옥이 되었다. 주물을 배격하려는 모세의 바로 그 노력이 최극의 주물이 되었다; 그의 계명은 나중에 예술을 망치는 데에 사용되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동경심을 무효화 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다.

옛날에는 권한을 가진 주물 낱말이 두려움-일으키는 교리였는데,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모든 폭군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교리적인 주물은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반하여 편협한 신앙, 광신, 미신, 불관용, 그리고 가장 지독한 야만적인 학대의 족쇄를 채우게 하였다. 지혜와 진리에 대한 현대의 존중은, 주물-만드는 경향으로부터 보다 높은 사고(思考)와 이성(理性)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최근에 탈출하였을 뿐이다. 여러 종교가들이 성스러운 책으로 여겼던, 축적된 맹목적 숭배 기록들에 관해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진리가 그 책 속에

88:2.3 (969.1) The hearth — fireplace — became more or less of a fetish, a sacred spot. The shrines and temples were at first fetish places because the dead were buried there. The fetish hut of the Hebrews was elevated by Moses to that place where it harbored a superfetish, the then existent concept of the law of God. But the Israelites never gave up the peculiar Canaanite belief in the stone altar: “And this stone which I have set up as a pillar shall be God’s house.” They truly believed that the spirit of their God dwelt in such stone altars, which were in reality fetishes.

88:2.4 (969.2) The earliest images were made to preserve the appearance and memory of the illustrious dead; they were really monuments. Idols were a refinement of fetishism. The primitives believed that a ceremony of consecration caused the spirit to enter the image; likewise, when certain objects were blessed, they became charms.

88:2.5 (969.3) Moses, in the addition of the second commandment to the ancient Dalamatian moral code, made an effort to control fetish worship among the Hebrews. He carefully directed that they should make no sort of image that might become consecrated as a fetish. He made it plain, “You shall not make a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of the earth.” While this commandment did much to retard art among the Jews, it did lessen fetish worship. But Moses was too wise to attempt suddenly to displace the olden fetishes, and he therefore consented to the putting of certain relics alongside the law in the combined war altar and religious shrine which was the ark.

88:2.6 (969.4) Words eventually became fetishes, more especially those which were regarded as God’s words; in this way the sacred books of many religions have become fetishistic prisons incarcerating the spiritual imagination of man. Moses’ very effort against fetishes became a supreme fetish; his commandment was later used to stultify art and to retard the enjoyment and adoration of the beautiful.

88:2.7 (969.5) In olden times the fetish word of authority was a fear-inspiring doctrine, the most terrible of all tyrants which enslave men. A doctrinal fetish will lead mortal man to betray himself into the clutches of bigotry, fanaticism, superstition, intolerance, and the most atrocious of barbarous cruelties. Modern respect for wisdom and truth is but the recent escape from the fetish-making tendency up to the higher levels of thinking and reasoning. Concerning the accumulated fetish writings which various religionists hold as sacred books, it is not only believed that what is in the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 만일 이들 성스러운 책 중에서 하나가 공교롭게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말한다면, 오랜 세대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남녀들이 행성이 둥글다는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들 신성시되는 책들 중의 하나를 열어보는 실천 관행으로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따름으로써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을 결정하려는 태도는, 터무니없는 맹목적 주물사상과 다름없다. “거룩한 책”을 두고 서약하거나 최극 숭배 대상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정교한 주물사상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개인 족장의 손톱을 다듬은 부스르기들에 대해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발전하여, 적어도 도덕적 지혜들이 “신성시되는 책”으로 모여지게 된 시기와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선별된 그것들을 결국 반영한, 편지들, 법, 전설들, 우화들, 신화들, 여러 편의 시(詩)들, 그리고 연대기들의 훌륭한 수집품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실제 진화적 진보를 이룩하였음을 나타낸다.

주물이 되기 위하여, 말쑥들은 영감(靈感)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고, 신성하게 영감 되어 씌어졌다고 여겨지는 주문(呪文)이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도록 직접적으로 이끌었고 반면에, 시민적 형식들에서의 진화가 국가의 권위가 성숙되도록 이끌었다.

제 3 장. 토템 숭배

주물숭배는, 거룩한 돌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신앙으로부터, 우상 숭배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 그리고 자연 경배를 거쳐서, 토템 숭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시적 예배종파들 전체 속에 면면히 흘러 내려왔다.

토템 숭배는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관습이 병합된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생물적 근원으로 추정되는 토템 동물을 존중하면 식량 제공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다. 토템들은 하나에서 그 집단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들 하느님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어떤 하느님은 씨족이 개인화된 것이었다. 토템 숭배는 다른 면에서 개인적 종교를 사회화하려는 시도의 한 위상이었다. 토템은 결국에는 현대의 여러 민족들의 깃발, 곧 나라의 상징으로 진화하였다.

주물 주머니, 마법의 주머니는 귀신이 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물건들로 훌륭하게 구색을 갖춘 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머니였으며, 옛날의 주술사는 자기 능력의 상징인 그 주머니를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문명화 된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의식(意識)의 상징인 자기들의 깃발이 결코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한다.

사제 직무의 휘장과 왕의 직책의 휘장은 결국

book is true, but also that every truth is contained in the book. If one of these sacred books happens to speak of the earth as being flat, then, for long generations, otherwise sane men and women will refuse to accept positive evidence that the planet is round.

88:2.8 (969.6) The practice of opening one of these sacred books to let the eye chance upon a passage, the following of which may determine important life decisions or projects,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arrant fetishism. To take an oath on a “holy book” or to swear by some object of supreme veneration is a form of refined fetishism.

88:2.9 (969.7) But it does represent real evolutionary progress to advance from the fetish fear of a savage chief’s fingernail trimmings to the adoration of a superb collection of letters, laws, legends, allegories, myths, poems, and chronicles which, after all, reflect the winnowed moral wisdom of many centuries, at least up to the time and event of their being assembled as a “sacred book.”

88:2.10 (970.1) To become fetishes, words had to be considered inspired, and the invocation of supposed divinely inspired writings led direct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of the church, while the evolution of civil forms led to the fruition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3. TOTEMISM

88:3.1 (970.2) Fetishism ran through all the primitive cults from the earliest belief in sacred stones, through idolatry, cannibalism, and nature worship, to totemism.

88:3.2 (970.3) Totemism is a combination of social and religious observances. Originally it was thought that respect for the totem animal of supposed biologic origin insured the food supply. Totems were at one and the same time symbols of the group and their god. Such a god was the clan personified. Totemism was one phase of the attempted socialization of otherwise personal religion. The totem eventually evolved into the flag, or national symbol, of the various modern peoples.

88:3.3 (970.4) A fetish bag, a medicine bag, was a pouch containing a reputable assortment of ghost-impregnated articles, and the medicine man of old never allowed his bag, the symbol of his power, to touch the ground. Civilized peoples in the twentieth century see to it that their flags, emblems of national consciousness, likewise never touch the ground.

88:3.4 (970.5) The insignia of priestly and kingly office

에는 주물들로 숭배되었으며, 국가의 최극 권위라는 주물은, 씨족으로부터 부족으로, 종주권으로부터 주권으로, 토템으로부터 깃발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들을 거쳤다. 주물로 여겨지는 왕들은 “거룩한 권한”으로 통치하였고, 다른 여러 정부 형태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였을 때의 일반적인 사람의 관념을 높이 평가하고 받든다. 한 사람의 의견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민주적인 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동일한 그 평범한 판단이 공의(公義)로운 결정과 정의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were eventually regarded as fetishes, and the fetish of the state supreme has passed through many stages of development, from clans to tribes, from suzerainty to sovereignty, from totems to flags. Fetish kings have ruled by “divine right,” and many other forms of government have obtained. Men have also made a fetish of democracy, the exaltation and adoration of the common man’s ideas when collectively called “public opinion.” One man’s opinion, when taken by itself, is not regarded as worth much, but when many men are collectively functioning as a democracy, this same mediocre judgment is held to be the arbiter of justice and the standard of righteousness.

제 4 장. 마술

문명인은 과학을 통하여 실제적인 환경의 문제들을 공격하지만; 미개인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마술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술은 그 술책이 불가해한 것들을 끊임없이 해석할 것으로 추측되는 영적 환경을 조종하는 기법이었고; 자발적인 영의 협동을 획득하는 기술이었고 주물들 또는 보다 더 강력한 다른 영들을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영의 도움을 강요하는 기술이었다.

마술과 요술 그리고 점(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이다:

1.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보장받음.
2.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움직임.

과학의 목적은 마술의 목적과 일치한다. 인류는 명상이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술로부터 과학으로 진보를 이룩하고 있다. 사람은 점차적으로 진리에 접근하고 있고, 실수에서 시작하고, 실수에서 진보하며, 마침내는 진리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다. 오직 과학적인 방법이 도래함으로써 사람은 똑바른 방향에서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 미신에 대한 매력은 나중에 과학적인 호기심을 낳았다. 이러한 원시적인 미신들 속에는 진보적인 활동적 감정—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있는—이 있었으며, 옛날의 마술 속에는 진보적인 추진력이 있었다. 이러한 미신들은 지구의 환경을 알고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창발을 대표하였다.

마술은 미개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죄에 대한 후대의 관념은, 자연적인 죽음의 원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마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 사람의 자연적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여 애매하게 열 사람을 죽이는 것

4. MAGIC

88:4.1 (970.6) Civilized man attacks the problems of a real environment through his science; savage man attempted to solve the real problems of an illusory ghost environment by magic. Magic was the technique of manipulating the conjectured spirit environment whose machinations endlessly explained the inexplicable; it was the art of obtaining voluntary spirit co-operation and of coercing involuntary spirit aid through the use of fetishes or other and more powerful spirits.

88:4.2 (970.7) The object of magic, sorcery, and necromancy was twofold:

88:4.3 (970.8) 1. To secure insight into the future.

88:4.4 (970.9) 2. Favorably to influence environment.

88:4.5 (970.10) The objects of science are identical with those of magic. Mankind is progressing from magic to science, not by meditation and reason, but rather through long experience, gradually and painfully. Man is gradually backing into the truth, beginning in error, progressing in error, and finally attaining the threshold of truth. Only with the arrival of the scientific method has he faced forward. But primitive man had to experiment or perish.

88:4.6 (970.11) The fascination of early superstition was the mother of the later scientific curiosity. There was progressive dynamic emotion — fear plus curiosity — in these primitive superstitions; there was progressive driving power in the olden magic. These superstitions represented the emergence of the human desire to know and to control planetary environment.

88:4.7 (971.1) Magic gained such a strong hold upon the savage because he could not grasp the concept of natural death. The later idea of original sin helped much to weaken the grip of magic on the race in that it accounted for natural death. It was at one time not at all uncommon for ten innocent persons to be put to death because of supposed responsibility for one natural death. This

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이것은 고대의 민족들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지 못한 이유들 중의 하나였으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들 속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통용되고 있다. 고소를 당한 개별존재는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대개 죄를 고백하였다.

마술은 미개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개인은 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 위에 요술을 실친함으로써 실제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은 요술쟁이의 마술에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술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시 민족들은 마술을 너무나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그들을 죽였고, 그러한 결과들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실패한 경우에는 항상 어떤 그럴듯한 해명이 만들어졌는데, 결함이 있는 마술에 대한 치유책은 더욱 마술적인 것이었다.

제 5 장. 마술적인 부적(符籙)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마술은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과 관련이 있었다. 육신적인 배설 행위를 은밀하게 행하는 습관은, 육체로부터 나온 어떤 것을 적(敵)이 취하여 해로운 마술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나온 모든 배설물을 신중하게 땅에 묻었다. 공개적인 침 뱉는 행위를 자제한 것은, 그 타액이 해롭게 하는 마술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뱉은 침은 반드시 감추어졌다. 심지어는 먹다 남은 것, 옷, 그리고 장신구들도 마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미개인들은 식탁에서 먹은 자기 음식을 절대로 남기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적이 이것들을 마술적인 예식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행해졌으며, 그러한 실친 관행들에 대한 위생적인 가치를 인식하였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

마술적인 부적들은 매우 다양한 물체들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살, 호랑이 발톱, 악어 이빨, 유독성 식물의 씨, 뱀의 독액,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이 있었다. 죽은 시체의 뼈들은 매우 마술적인 것이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부적을 매우 강력하게 믿었다. 피 또는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분비물들이 사랑에 대한 마술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형상들이 마술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초상화들이 그려졌고,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할 때,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 물건을 살 때, 미신적인 사람들은 파는 사람의 심정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나무 조각을 씹곤 하였다.

검은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검은 고양이도 그러하였다. 막대기 또는 지팡이는 북과 종 그리고 매듭과 함께 마술적인 것이었다. 옛날에는 모든 물체들이 마술적인 부적들이었다. 최근의 또는 보다 높은 문명

is one reason why ancient peoples did not increase faster, and it is still true of some African tribes. The accused individual usually confessed guilt, even when facing death.

88:4.8 (971.2) Magic is natural to a savage. He believes that an enemy can actually be killed by practicing sorcery on his shingled hair or fingernail trimmings. The fatality of snake bites was attributed to the magic of the sorcerer. The difficulty in combating magic arises from the fact that fear can kill. Primitive peoples so feared magic that it did actually kill, and such results were sufficient to substantiate this erroneous belief. In case of failure there was always some plausible explanation; the cure for defective magic was more magic.

5. MAGICAL CHARMS

88:5.1 (971.3) Since anything connected with the body could become a fetish, the earliest magic had to do with hair and nails. Secrecy attendant upon body elimination grew up out of fear that an enemy might get possession of something derived from the body and employ it in detrimental magic; all excreta of the body were therefore carefully buried. Public spitting was refrained from because of the fear that saliva would be used in deleterious magic; spittle was always covered. Even food remnants, clothing, and ornaments could become instruments of magic. The savage never left any remnants of his meal on the table. And all this was done through fear that one's enemies might use these things in magical rites, not from any appreciation of the hygienic value of such practices.

88:5.2 (971.4) Magical charms were concocted from a great variety of things: human flesh, tiger claws, crocodile teeth, poison plant seeds, snake venom, and human hair. The bones of the dead were very magical. Even the dust from footprints could be used in magic. The ancients were great believers in love charms. Blood and other forms of bodily secretions were able to insure the magic influence of love.

88:5.3 (971.5) Images were supposed to be effective in magic. Effigies were made, and when treated ill or well, the same effects were believed to rest upon the real person. When making purchases, superstitious persons would chew a bit of hard wood in order to soften the heart of the seller.

88:5.4 (971.6) The milk of a black cow was highly magical; so also were black cats. The staff or wand was magical, along with drums, bells, and knots. All ancient objects were magical charms. The practices of a new or higher civilization were

세계의 실천 관행들이 탐탁지 않게 여겨졌던 것은, 악한 마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글을 쓰는 것과 인쇄하는 것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간주되었다.

원시인은 이름들 특히 하느님들에 대한 이름들은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이름은 실존개체, 육체적인 개인성과는 다른 별개의 어떤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름은 그 혼과 그림자와 동등하게 존중되었다. 금전을 빌리기 위해 이름이 전당 잡혔으며, 그 빚을 갚음으로써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은 증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개별존체의 이름은 마술에 있어서 곧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야만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 중요한 하나는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또는 일상적인 이름—별명—이 사용되었다. 야만인은 낯선 사람에게 결코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유별난 본성의 체험을 하였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거나 불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였다. 야만인들은 자기 부족장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위와 학위를 따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과 같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들 사이에서는, 개별 이름이 실존하지 않는다.

제 6 장. 마술의 실천 관행

마술은 요술 지팡이 사용과 “주술(呪術)” 예식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통하여 실천되고, 마술사들은 옷을 입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다. 원시적인 마술사들 중에는 여자들의 숫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마술에 있어서 “주술”은 치료가 아니라 신비를 의미한다. 미개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치료하지 않았다; 마술에 능통한 사람의 권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세기의 부두교의 마법적 의사(醫師)들은 전형적인 옛 마술사들이다.

마술에는 대중적인 위상과 사적인 위상이 둘 모두 있다.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녀, 요술쟁이, 마법사는 어떤 사람의 적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적인 마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술을 시행하였다. 이원적(二元的)인 영 체계,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은, 선의(善意)의 마술과 악의(惡意)의 마술에 대한 후대의 믿음들을 기원시켰다. 그리고 종교가 진화되면서, 마술은 자체적인 예배종파의 외부에서 영을 작동시키기 위해 적용된 항목이었으며, 또한 옛날의 귀신에 대한 신앙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영창(詠唱) 예식과 주문(呪文)으로 구성된 말의 조합들은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의 어떤 주문들은 마침내 기도문들로 진화하였다. 이윽고, 모방적인 마술이 실천되었고; 기도 문

looked upon with disfavor because of their supposedly evil magical nature. Writing, printing, and pictures were long so regarded.

88:5.5 (971.7) Primitive man believed that names must be treated with respect, especially names of the gods. The name was regarded as an entity, an influence distinct from the physical personality; it was esteemed equally with the soul and the shadow. Names were pawned for loans; a man could not use his name until it had been redeemed by payment of the loan. Nowadays one signs his name to a note. An individual's name soon became important in magic. The savage had two names; the important one was regarded as too sacred to use on ordinary occasions, hence the second or everyday name — a nickname. He never told his real name to strangers. Any experience of an unusual nature caused him to change his name; sometimes it was in an effort to cure disease or to stop bad luck. The savage could get a new name by buying it from the tribal chief; men still invest in titles and degrees. But among the most primitive tribes, such as the African Bushmen, individual names do not exist.

6. THE PRACTICE OF MAGIC

88:6.1 (972.1) Magic was practiced through the use of wands, “medicine” ritual, and incantations, and it was customary for the practitioner to work unclothed. Women outnumbered the men among primitive magicians. In magic, “medicine” means mystery, not treatment. The savage never doctored himself; he never used medicines except on the advice of the specialists in magic. And the voodoo doctors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typical of the magicians of old.

88:6.2 (972.2) There was both a public and a private phase to magic. That performed by the medicine man, shaman, or priest was supposed to be for the good of the whole tribe. Witches, sorcerers, and wizards dispensed private magic, personal and selfish magic which was employed as a coercive method of bringing evil on one's enemies. The concept of dual spiritism, good and bad spirits, gave rise to the later beliefs in white and black magic. And as religion evolved, magic was the term applied to spirit operations outside one's own cult, and it also referred to older ghost beliefs.

88:6.3 (972.3) Word combinations, the ritual of chants and incantations, were highly magical. Some early incantations finally evolved into prayers. Presently, imitative magic was practiced; prayers were acted

구들이 구성되었다; 마술적인 춤들은 극적인 기도문에 불과하였다. 기도는 희생 제물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마술을 대체시켰다.

몸짓은, 말하기보다 오래되었으므로, 더욱 기록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고, 모조품은 강력한 마술적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졌다. 적색 인종들은 때때로 물소 춤을 추곤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물소 역할을 하고 붙잡히는 시늉을 하여 곧 있을 사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5월 축제에서의 성(性) 축제는 단순히 마술을 모방하는 것, 식물 세계의 성(性) 열정에 암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형(人形)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술적인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술은 결국에는 과학적인 시대의 열매를 맺힌 진화 종교적 나무에서 뻗어 나간 가지였다. 점성술에 대한 믿음은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현자의 돌에 대한 믿음은 금속을 지배하게 만든 반면, 마술적인 숫자들에 대한 믿음은 수학을 형성케 하였다.

그러나 부적들로 가득한 세상은 모든 개인적인 열망과 독창력을 매우 많이 파괴시켰다. 가외(加外)의 노동과 근면한 노동에 의한 소산물들이 마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이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면, 족장 앞으로 끌려갔고 이러한 초과되는 곡식을 게으른 이웃의 땅에서 퍼내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야만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다; 마법을 쓰는 사람으로 처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과학은 삶으로부터 투기적인 요소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현대적인 교육 방법이 실패한다면, 거의 즉시적으로 마술에 대한 원시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미신들은 소위 문명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언어는 그 종족이 마술적인 미신 속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많은 흔적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홀린다는 말, 액운이라는 말, 신들린다는 말, 영을 받았다는 말, 귀신이 잡아간다는 말, 천성적이라는 말, 닳을 잃는다는 말, 벼락 맞는다는 말, 귀신도 나자빠진다는 말들이 있다. 그리고 지능인간 존재들이 아직도 행운과 악한 눈 그리고 점성술을 믿고 있다.

고대의 마술은 현대 과학의 누에고치였으며, 그 시대에는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지한 미신적 환상들은 과학의 개념들이 탄생될 때까지 사람들의 원시적인 마음을 선동하였다. 오늘날, 유란시아는 이러한 지적 진화의 황혼기에 놓여 있다. 전(全) 세계의 반쪽은 진리의 빛과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반쪽은 옛날의 미신과 아주 약하게 변장된 마술의 품속에서 번민하고 있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out; magical dances were nothing but dramatic prayers. Prayer gradually displaced magic as the associate of sacrifice.

88:6.4 (972.4) Gesture, being older than speech, was the more holy and magical, and mimicry was believed to have strong magical power. The red men often staged a buffalo dance in which one of their number would play the part of a buffalo and, in being caught, would insure the success of the impending hunt. The sex festivities of May Day were simply imitative magic, a suggestive appeal to the sex passions of the plant world. The doll was first employed as a magic talisman by the barren wife.

88:6.5 (972.5) Magic was the branch off the evolutionary religious tree which eventually bore the fruit of a scientific age. Belief in astrology led to the development of astronomy; belief in a philosopher's stone led to the mastery of metals, while belief in magic numbers founded the science of mathematics.

88:6.6 (972.6) But a world so filled with charms did much to destroy all personal ambition and initiative. The fruits of extra labor or of diligence were looked upon as magical. If a man had more grain in his field than his neighbor, he might be haled before the chief and charged with enticing this extra grain from the indolent neighbor's field. Indeed, in the days of barbarism it was dangerous to know very much; there was always the chance of being executed as a black artist.

88:6.7 (972.7) Gradually science is removing the gambling element from life. But if modern methods of education should fail, there would be an almost immediate reversion to the primitive beliefs in magic. These superstitions still linger in the minds of many so-called civilized people. Language contains many fossils which testify that the race has long been steeped in magical superstition, such words as spellbound, ill-starred, possessions, inspiration, spirit away, ingenuity, entrancing, thunderstruck, and astonished. And intelligent human beings still believe in good luck, the evil eye, and astrology.

88:6.8 (973.1) Ancient magic was the cocoon of modern science, indispensable in its time but now no longer useful. And so the phantasms of ignorant superstition agitated the primitive minds of men until the concepts of science could be born. Today, Urantia is in the twilight zone of this intellectual evolution. One half the world is grasping eagerly for the light of truth and the facts of scientific discovery, while the other half languishes in the arms of ancient superstition and but thinly disguised magic.

88:6.9 (973.2)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89 편 죄,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 088

유랜시아 책

090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89 편 죄, 희생 제물, 그리고 속죄

섹션

소개

제 1 장. 금기(禁忌)

제 2 장. 죄의 개념

제 3 장. 금욕과 굴종

제 4 장. 희생 제물의 기원

제 5 장. 희생 제물과 식인(食人) 풍습

제 6 장. 인간 희생제물의 진화

제 7 장. 인간 희생제물의 변형

제 8 장. 대속(代贖)과 계약

제 9 장. 희생 제물과 성찬

제 10 장. 죄의 용서

PAPER 89

SIN, SACRIFICE, AND ATONEM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aboo

2. The Concept of Sin

3.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4. Origins of Sacrifice

5. Sacrifices and Cannibalism

6. Evolution of Human Sacrifice

7.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8. Redemption and Covenants

9. Sacrifices and Sacraments

10. Forgiveness of Sin

소개

원시인은 자기 자신이 영들에게 빚을 진 것으로, 속전(贖錢)을 내어 석방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개인들은 그것을 바라 보면서, 공의(公義)로서 영들이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자기들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개념은 죄와 구원에 대한 교리로 발전하였다. 혼(魂)은 박탈된 상태—원죄(原罪)—에서 세상으로 나온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혼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고; 속죄 염소를 바쳐야만 하였다. 머리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해골 경배의 예배종파를 실천하는 것에 더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의 대용품, 속죄-인간을 바칠 수 있었다.

미개인들은 영들이 인간의 비참함과 고난 그리고 굴욕을 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최극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오직 범행에 대한 죄만을 고려하였지만, 나중에는 태만에 대한 죄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그 이후의 전체적인 체계가 이러한 두 관념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라났다. 새로운 이 예식은 희생제물로 위로하는

INTRODUCTION

89:0.1 (974.1) PRIMITIVE man regarded himself as being in debt to the spirits, as standing in need of redemption. As the savages looked at it, in justice the spirits might have visited much more bad luck upon them. As time passed, this concept developed into the doctrine of sin and salvation. The soul was looked upon as coming into the world under forfeit — original sin. The soul must be ransomed; a scapegoat must be provided. The head-hunter, in addition to practicing the cult of skull worship, was able to provide a substitute for his own life, a scapeman.

89:0.2 (974.2) The savage was early possessed with the notion that spirits derive supreme satisfaction from the sight of human misery, suffering, and humiliation. At first, man was only concerned with sins of commission, but later he became exercised over sins of omission. And the whole subsequent sacrificial system grew up around these two ideas. This new ritual had to do with the

예식(禮式)의 관습과 관계가 있었다. 원시인은 하느님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오직 진보된 문명 사회의 사람들만이 지속적으로 감정이 안정되고 인자하신 하느님을 인식한다. 속죄는 미래의 축복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당면한 불행을 물리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도피, 축귀(逐鬼), 강압, 그리고 위로의 예식들은 모두 서로에게 융합되었다.

제 1 장. 금기(禁忌)

금기의 엄수는 불운을 피하려는, 어떤 것을 회피함으로써 영(靈) 귀신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사람의 노력이었다. 금기들은 처음에는 종교적이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일찍부터 귀신 또는 영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입법자이자 제도 건축자가 되었다. 금기는 예식적인 표준의 근원이며 원시적인 자아-통제의 선조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규정 중 가장 오래된 형태였고 매우 오랫동안 유일한 것이었다; 여전히 사회적인 규제적 구조의 기본 단위이다.

이러한 금지 조항들이 미개인들의 마음속에서 명령하였던 내용은, 그것들을 강요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 힘들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정확하게 맞먹었다. 금기들은 처음에는 불행에 대한 우연한 체험 때문에 일어났으며; 나중에는 족장들과 무당들—어떤 영적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느님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맹목적 숭배 대상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시인의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금기를 위반하였을 때 놀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러한 극적인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에게 미치는 금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가장 오래된 금지 조항들 중에는 여자와 다른 재산들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들이 있었다. 종교가 금기의 진화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저주를 받은 물건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고 나중에는 부정(不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히브리인들의 기록은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거룩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계통들에 따른 그들의 신앙은 많은 다른 민족들의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덜 복잡하고 훨씬 덜 광범위하였다.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일곱 계명들은, 히브리인들의 열 가지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금기들이었고, 대부분의 옛날 금지 조항들처럼 동일한 부정적인 형태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다 새로운 법전들은 선제하는 수천 가지의 금기들을 대치시키면서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대의 계명들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의 음식에 대한 금기들은 주물숭배와 토tem 숭배 속에서 기원되었다.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observance of the propitiation ceremonies of sacrifice. Primitive man believed that something special must be done to win the favor of the gods; only advanced civilization recognizes a consistently even-tempered and benevolent God. Propitiation was insurance against immediate ill luck rather than investment in future bliss. And the rituals of avoidance, exorcism, coercion, and propitiation all merge into one another.

1. THE TABOO

89:1.1 (974.3) Observance of a taboo was man's effort to dodge ill luck, to keep from offending the spirit ghosts by the avoidance of something. The taboos were at first nonreligious, but they early acquired ghost or spirit sanction, and when thus reinforced, they became lawmakers and institution builders. The taboo is the source of ceremonial standards and the ancestor of primitive self-control. It was the earliest form of societal regulation and for a long time the only one; it is still a basic unit of the social regulative structure.

89:1.2 (974.4) The respect which these prohibitions commanded in the mind of the savage exactly equaled his fear of the powers who were supposed to enforce them. Taboos first arose because of chance experience with ill luck; later they were proposed by chiefs and shamans — fetish men who were thought to be directed by a spirit ghost, even by a god. The fear of spirit retribution is so great in the mind of a primitive that he sometimes dies of fright when he has violated a taboo, and this dramatic episode enormously strengthens the hold of the taboo on the minds of the survivors.

89:1.3 (974.5) Among the earliest prohibitions were restrictions on the appropriation of women and other property. As religion began to play a larger part in the evolution of the taboo, the article resting under ban was regarded as unclean, subsequently as unholy. The records of the Hebrews are full of the mention of things clean and unclean, holy and unholy, but their beliefs along these lines were far less cumbersome and extensive than were those of many other peoples.

89:1.4 (975.1) The seven commandments of Dalamatia and Eden, as well as the ten injunctions of the Hebrews, were definite taboos, all expressed in the same negative form as were the most ancient prohibitions. But these newer codes were truly emancipating in that they took the place of thousands of pre-existent taboos. And more than this, these later commandments definitely promised something in return for obedience.

89:1.5 (975.2) The early food taboos originated in fetishism and totemism. The swine was sacred to

는 돼지가 거룩한 존재이고,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소가 거룩한 존재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금기는 히브리 신앙과 이슬람 신앙 속에 영속되었다. 음식에 대한 금기로부터 변형된 한 형태는, 임신한 여인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러한 음식물은 그 아이에게 금기가 되곤 하였다.

빨리 먹는 태도는 금기가 되었고, 그리하여 고대와 현대의 식탁 예절이 기원되었다. 특권계급 체계들과 사회적 차원들은 옛날의 금지 조항들이 남아 있는 흔적이다. 금기들은 사회가 조직되는데 있어서 매우 효력이 있었지만, 몹시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부정적인-금지 체계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규정들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고 시대에 뒤진 그리고 쓸모없는 금기들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잡다한 금기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문명화된 사회도 원시인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을 것이며, 원시종교에서의 금기를 유지하는 지지가 없었다면 금기는 결코 지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진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들 대부분은 매우 값이 비쌌는데, 노력과 희생 제물과 자아-부정에 있어서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자아-통제의 이러한 업적들은 그 위에서 사람이 위로 향한 문명의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게 하는 실제 발판이었다.

제 2 장. 죄의 개념

운(運)에 대한 두려움과 불행에 대한 공포는, 이러한 재난들을 막는 대비책으로 여겨지는 원시적인 종교를 창안하도록 문자 그대로 사람을 내몰았다. 종교는 마술과 귀신들로부터 진화하여 영들과 주물들의 단계를 거쳐 금기들로 진화하였다. 원시적인 모든 부족들 각각은 금지된 열매의 나무, 글자 그대로는 사과나무이지만, 수천 개의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금기들이 무겁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나무는 언제나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원시적인 마음 상태가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모두 상상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고, 금기가 진화하는 종교로부터 진지한 동조를 얻게 되자,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모두 준비되었다. 죄에 대한 관념은 계시된 종교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자연적인 죽음이 원시적인 마음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오직 죄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였다. 죄는 금기를 어긴 것이었고,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였다.

죄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적인 것이었다; 사고(思考)가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러한 전체 개념은, 이 땅에 있었던 작은 파라다이스 시대와 달문으로부터 먼먼히 내려오는 전통들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에덴동산과 아

the Phoenicians, the cow to the Hindus. The Egyptian taboo on pork has been perpetuated by the Hebraic and Islamic faiths. A variant of the food taboo was the belief that a pregnant woman could think so much about a certain food that the child, when born, would be the echo of that food. Such viands would be taboo to the child.

89:1.6 (975.3) Methods of eating soon became taboo, and so originated ancient and modern table etiquette. Caste systems and social levels are vestigial remnants of olden prohibitions. The taboos were highly effective in organizing society, but they were terribly burdensome; the negative-ban system not only maintained useful and constructive regulations but also obsolete, outworn, and useless taboos.

89:1.7 (975.4) There would, however, be no civilized society to sit in criticism upon primitive man except for these far-flung and multifarious taboos, and the taboo would never have endured but for the upholding sanctions of primitive religion. Many of the essential factors in man's evolution have been highly expensive, have cost vast treasure in effort, sacrifice, and self-denial, but these achievements of self-control were the real rungs on which man climbed civilization's ascending ladder.

2. THE CONCEPT OF SIN

89:2.1 (975.5) The fear of chance and the dread of bad luck literally drove man into the invention of primitive religion as supposed insurance against these calamities. From magic and ghosts, religion evolved through spirits and fetishes to taboos. Every primitive tribe had its tree of forbidden fruit, literally the apple but figuratively consisting of a thousand branches hanging heavy with all sorts of taboos. And the forbidden tree always said, "Thou shalt not."

89:2.2 (975.6) As the savage mind evolved to that point where it envisaged both good and bad spirits, and when the taboo received the solemn sanction of evolving religion, the stage was all set for the appearance of the new conception of *sin*. The idea of sin was universally established in the world before revealed religion ever made its entry. It was only by the concept of sin that natural death became logical to the primitive mind. Sin was the transgression of taboo, and death was the penalty of sin.

89:2.3 (975.7) Sin was ritual, not rational; an act, not a thought. And this entire concept of sin was fostered by the lingering traditions of Dilmun and the days of a little paradise on earth. The tradition of Adam and the Garden of Eden also lent

담의 전통 역시 인종들의 여명기에 있었던 한 때의 “황금기”에 대한 몽상의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특별한 창조에서 기원되었다는 것과,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 그리고 금기를 범함으로써—죄—나중에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믿는 형태로 후대에 표현되었던 것이다.

금기의 습관적인 위반은 악한 것이 되었고; 원시적인 법은 악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종교는 그것을 죄라고 하였다. 초기 시대의 부족들 사이에서 금기를 어기는 것은 범죄와 죄가 병합된 의미였다. 공동체가 겪는 재난은 언제나 부족의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되었다. 정의로움과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악한 자들이 곁으로 보기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금기들을 어긴 사람들을 위한 지옥의 개념을 창안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의 형벌이 마련된 이 장소들의 숫자는 하나에서부터 다섯까지 다양하였다.

자백과 용서에 대한 관념은 원시적인 종교에서 일찍부터 출현하였다. 사람들은 공개적인 회의 장소에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죄를 범하곤 하였다. 자백은 단순히 용서를 위한 예식에 불과하였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통고,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외치는 예식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에는 정결케 하는 예식 순서들이 이어졌다.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이러한 무의미한 실천 관행을 행하였다. 곁으로 보기에 위생적인 것으로 보이는 옛 부족들의 대부분의 관습들이 대개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제 3 장. 금욕과 굴종

금욕이 종교 진화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발생되었다; 금식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육체적인 쾌락들, 특별히 성(性)적 자연본성을 삼가는 것이 곧 관습으로 굳어졌다. 금식하는 예식은 고대의 여러 종교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실천적으로는 현대의 모든 신학적 생각체계에 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미개인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태우고 땅 속에 묻는 낭비적인 실천 관행에서 벗어나던 바로 그 때, 그 종족들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에, 금욕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종교적 교리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진지한 혼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재산은 하나의 영적인 불이익으로 간주되었다. 물질적인 소유의 영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필로와 바울의 시대에 널리 유행되었으며,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영향을 유럽의 철학에 미쳤다.

가난은 육신의 고행에 대한 예식의 일부분이었으며,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들 특히 그리스도교의 문헌들과 가르침들 속에 삽입되었다. 참회는 고행이라는 바보스러운 혼한 예식의 부정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개인들에게 자아-

substance to the dream of a onetime “golden age” of the dawn of the races. And all this confirmed the ideas later expressed in the belief that man had his origin in a special creation, that he started his career in perfection, and that transgression of the taboos — sin — brought him down to his later sorry plight.

89:2.4 (976.1) The habitual violation of a taboo became a vice; primitive law made vice a crime; religion made it a sin. Among the early tribes the violation of a taboo was a combined crime and sin. Community calamity was always regarded as punishment for tribal sin. To those who believed that prosperity and righteousness went together, the apparent prosperity of the wicked occasioned so much worry that it was necessary to invent hells for the punishment of taboo violators; the numbers of these places of future punishment have varied from one to five.

89:2.5 (976.2) The idea of confession and forgiveness early appeared in primitive religion. Men would ask forgiveness at a public meeting for sins they intended to commit the following week. Confession was merely a rite of remission, also a public notification of defilement, a ritual of crying “unclean, unclean!” Then followed all the ritualistic schemes of purification. All ancient peoples practiced these meaningless ceremonies. Many apparently hygienic customs of the early tribes were largely ceremonial.

3.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89:3.1 (976.3) Renunciation came as the next step in religious evolution; fasting was a common practice. Soon it became the custom to forgo many forms of physical pleasure, especially of a sexual nature. The ritual of the fast was deeply rooted in many ancient religions and has been handed down to practically all modern theologic systems of thought.

89:3.2 (976.4) Just about the time barbarian man was recovering from the wasteful practice of burning and burying property with the dead, just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races was beginning to take shape, this new religious doctrine of renunciation appeared, and tens of thousands of earnest souls began to court poverty. Property was regarded as a spiritual handicap. These notions of the spiritual dangers of material possession were widespreadly entertained in the times of Philo and Paul, and they have markedly influenced European philosophy ever since.

89:3.3 (976.5) Poverty was just a part of the ritual of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which, unfortunately,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writings and teachings of many religions, notably Christianity. Penance is the negative form of this oft-times

통제를 가르쳤으며, 그것은 사회적 진화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었다. 자아-부정과 자아-통제는 초기의 진화 종교로부터 얻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사회적 소득이었다. 자아-통제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사람에게 제공하였고; 이기적 충족이라는 분자(分子)를 증강시키려고 항상 애쓰는 대신에 개인적인 욕구들이라는 분모(分母)를 낮춤으로써 삶이라는 분수(分數)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자아-단련에 대한 이러한 옛 관념들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인 고문과 매질을 포용하였다. 어머니 예배종파의 사제들이 특히 육체적인 고통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는데, 스스로 거세함으로써 본을 보이려고 하였다. 히브리인들과 힌두교인들 그리고 불교도들은 육체적인 굴욕에 대한 이 교리들을 진지하게 신봉하였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하느님들의 자아-부정 장부책에서 여분의 신용한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감정적인 압박을 당할 때 자아-부정과 자아-고통의 맹세를 하는 것이 한 때의 관습이었다. 이러한 맹세를 할 때 하느님들과의 계약이 성사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개념에서 그것은 참된 진화적인 발전을 나타내었는데 그 속에서 그 하느님들이 이러한 자아-고문과 육체의 고행에 대한 대가로 확실한 어떤 것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맹세는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이다. 해롭고도 과격한 특성을 갖는 이 맹세들은 인도의 특정한 집단들 속에서 오늘날 가장 잘 발견되고 있다.

금욕과 굴종을 부르짖는 예배종파가 성(性)적인 충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성욕을 절제하는 예배종파는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군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예식으로서 기원했다; 나중에는 이것이 “성자들”의 실천 관행이 되었다. 이 예배종파는 간음보다는 약간 덜한 하나의 악한 것으로 결혼을 허용하였다. 세계적인 큰 종교들 대부분은 이러한 고대의 예배종파에 의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아왔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교만큼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종파를 신봉하였으며, 그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가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확정 시켰던 그 가르침들 속에 반영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남자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겠는데,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교훈들이 예수의 복음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예배종파가 바울로 하여금 여자들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일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하나의 위대한 세계적인 종교의 교훈들 속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왔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천막을 만드는 자였고 선생이었던 그의 충고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켜졌다면, 인간 종족은 갑작스럽게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foolish ritual of renunciation. But all this taught the savage *self-control*, and that was a worth-while advancement in social evolution. Self-denial and self-control were two of the greatest social gains from early evolutionary religion. Self-control gave man a new philosophy of life; it taught him the art of augmenting life's fraction by lowering the denominator of personal demands instead of always attempting to increase the numerator of selfish gratification.

89:3.4 (976.6) These olden ideas of self-discipline embraced flogging and all sorts of physical torture. The priests of the mother cult were especially active in teaching the virtue of physical suffering, setting the example by submitting themselves to castration. The Hebrews, Hindus, and Buddhists were earnest devotees of this doctrine of physical humiliation.

89:3.5 (976.7) All through the olden times men sought in these ways for extra credits on the self-denial ledgers of their gods. It was once customary, when under some emotional stress, to make vows of self-denial and self-torture. In time these vows assumed the form of contracts with the gods and, in that sense, represented true evolutionary progress in that the gods were supposed to do something definite in return for this self-torture and mortification of the flesh. Vows we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Pledges of this harmful and extreme nature are best observed today among certain groups in India.

89:3.6 (977.1)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cult of renunciation and humiliation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sexual gratification. The continence cult originated as a ritual among soldiers prior to engaging in battle; in later days it became the practice of “saints.” This cult tolerated marriage only as an evil lesser than fornication. Many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have been adversely influenced by this ancient cult, but none more markedly than Christianity. The Apostle Paul was a devotee of this cult, and his personal views are reflected in the teachings which he fastened onto Christian theology: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I would that all men were even as I myself.” “I say, therefore, to the unmarried and widows, it is good for them to abide even as I.” Paul well knew that such teachings were not a part of Jesus' gospel, and his acknowledgment of this is illustrated by his statement, “I speak this by permission and not by commandment.” But this cult led Paul to look down upon women. And the pity of it all is that his personal opinions have long influenced the teachings of a great world religion. If the advice of the tentmaker-teacher were to be literally and universally obeyed, then would the human race come to a sudden and inglorious end. Furthermore, the involvement of a religion with the ancient continence cult leads directly to a war against marriage and the home, society's veritable

더욱이, 어떤 종교가 고대의 금욕적인 예배종파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인간 진화의 기본 제도가 사회적인 참된 기초에 해당하는 가정과 결혼에 항거하는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념들이, 다양한 민족들의 여러 종교들 속에서 독신자 사제 제도의 형성을 조장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방종함이 없는 해방, 포식함이 없는 영양 섭취, 방탕함이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언젠가는 사람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자아-통제는 극단적인 자아-부정보다 행실을 규제함에 있어서 더 나은 인간적 방침이다. 예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견해들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제 4 장. 희생 제물의 기원

종교적인 헌신의 일부분으로서의 희생제물은, 다른 여러 경건한 예식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원되지 않았다. 권세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비적인 현존 앞에서 경건한 경배를 드리며 엎드리려는 경향은, 자기 주인 앞에서 아양을 떠는 개(犬)의 태도에 잘 예시되고 있다. 그것은 경배의 충동으로부터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행동으로 한 계단 상승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의해서 자신의 희생제물의 가치를 측정한다. 희생제물에 대한 관념이 처음으로 종교적인 예식에 덧붙여졌을 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희생제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최초의 희생제물들은 머리카락을 뽑고, 살을 도려내고, 수족을 절단하고, 이를 뽑아내고,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였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희생제물에 대한 이러한 거친 개념들은 자아-포기, 고행, 금식, 궁핍에 대한 예식의 차원으로 향상되었고, 나중에는 슬픔과 고난 그리고 육체적인 고행을 통하여 성화(聖化)된다는 그리스도교 교리로 발전하였다.

종교의 진화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는 희생제물에 대한 두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였는데: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감사의 희생제물과, 보상의 관념이 포용된, 빛을 갚는 희생제물이 있었다. 나중에는 대속(代贖)의 관념이 발전되었다.

더 후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제물을 제공하면 하느님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였다; 향기로운 냄새로 신(神)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의식에 있어서 향을 피우고 다른 여러 가지 미적(美的) 특성들을 첨부시켰는데 그것들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축제로 발전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화려한 것이 되었다.

종교가 진화되자, 화해와 속죄의 희생제물 의식이 옛날의 도피와 달래기와 쫓아내기 방법들을 대체하였다.

희생제물에 대한 가장 초기의 관념은 조상의 영들에 의해서 중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foundation and the basic institution of human progress. And it is not to be wondered at that all such beliefs fostered the formation of celibate priesthoods in the many religions of various peoples.

89:3.7 (977.2) Someday man should learn how to enjoy liberty without license, nourishment without gluttony, and pleasure without debauchery. Self-control is a better human policy of behavior regulation than is extreme self-denial. Nor did Jesus ever teach these unreasonable views to his followers.

4. ORIGINS OF SACRIFICE

89:4.1 (977.3) Sacrifice as a part of religious devotions, like many other worshipful rituals, did not have a simple and single origin. The tendency to bow down before power and to prostrate oneself in worshipful adoration in the presence of mystery is foreshadowed in the fawning of the dog before its master. It is but one step from the impulse of worship to the act of sacrifice. Primitive man gauged the value of his sacrifice by the pain which he suffered. When the idea of sacrifice first attached itself to religious ceremonial, no offering was contemplated which was not productive of pain. The first sacrifices were such acts as plucking hair, cutting the flesh, mutilations, knocking out teeth, and cutting off fingers. As civilization advanced, these crude concepts of sacrifice were elevated to the level of the rituals of self-abnegation, asceticism, fasting, deprivation, and the later Christian doctrine of sanctification through sorrow, suffering, and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89:4.2 (977.4) Early in the evolution of religion there existed two conceptions of the sacrifice: the idea of the gift sacrifice, which connoted the attitude of thanksgiving, and the debt sacrifice, which embraced the idea of redemption. Later there developed the notion of substitution.

89:4.3 (977.5) Man still later conceived that his sacrifice of whatever nature might function as a message bearer to the gods; it might be as a sweet savor in the nostrils of deity. This brought incense and other aesthetic features of sacrificial rituals which developed into sacrificial feasting, in time becoming increasingly elaborate and ornate.

89:4.4 (978.1) As religion evolved, the sacrificial rites of conciliation and propitiation replaced the older methods of avoidance, placation, and exorcism.

89:4.5 (978.2) The earliest idea of the sacrifice was that of a neutrality assessment levied by ancestral

이었고; 후대에 이르러서야 죄 값에 대한 관념이 발전되었다. 행성영주 시대와 아담이 머물러 있던 시대의 전통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제거됨에 따라, 종족의 진화적인 기원에 대한 개념이 사람으로부터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죄와 원죄(原罪)에 대한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인종적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 교리로 진화되었다. 희생 제물로 죄 값을 치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분노와 질투심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비책이었다.

너무나도 많은 민감한 영들과 욕심 많은 하느님들로 둘러싸인 채로, 원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빛을 평생토록 갚기 위하여, 사제들과 예식과 희생 제물들 전체를 요구하는 수많은 채권자 신(神)들과 대면하고 있었다. 원죄에 대한 교리, 또는 인종적인 죄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권세자들에게 심각한 빚을 진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재능들과 자질들이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느님들에게 바칠 때에는, 그것들이 봉헌된 것으로 설명되거나, 신성시되거나, 또는 희생 제물이라고 불려진다.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형태의 속죄였으며; 희생 제물은 긍정적인 형태가 되었다. 속죄의 행위에는 산양과 찬미와 아첨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는 연회를 베푸는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대적인 형태의 신성한 경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속죄 예배종파의 이러한 긍정적인 실천 관행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현재의 경배 형태들은 긍정적인 속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옛날의 희생 제물 기법들을 의례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원시인들에게 있어서 동물 희생제물은 현대의 인종들이 부여할 수 있는 의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하였다. 이 미개인들은 그 동물들을 자기들의 실재적이고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은 자신의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리함을 보이게 되어, 자신의 일을 돕는 동물들은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길들여진 동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제물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집트의 어떤 통치자가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을 때 그것은 빈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113,433명의 노예, 493,386마리의 가축, 88척의 배, 2,756개의 금으로 된 형상들, 331,702병의 꿀과 기름, 228,380병의 포도주, 680,714마리의 거위, 6,744,428덩어리의 빵, 5,740,352자루의 동전.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심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음에 틀림없다.

반(半) 야만적인 이들은 순수하게 궁핍함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희생 제물로 바친 것들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먹도록 내몰았고, 하느님들은 그것으로부터 떠난 혼을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옛날의 성스러운 음식이라는, 현대의 용법에 따르면 성찬식인

spirits; only later did the idea of atonement develop. As man got away from the notion of the evolutionary origin of the race, as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sojourn of Adam filtered down through time, the concept of sin and of original sin became widespread, so that sacrifice for accidental and personal sin evolved into the doctrine of sacrifice for the atonement of racial sin. The atonement of the sacrifice was a blanket insurance device which covered even the resentment and jealousy of an unknown god.

89:4.6 (978.3) Surrounded by so many sensitive spirits and grasping gods, primitive man was face to face with such a host of creditor deities that it required all the priests, ritual, and sacrifices throughout an entire lifetime to get him out of spiritual debt.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or racial guilt, started every person out in serious debt to the spirit powers.

89:4.7 (978.4) Gifts and bribes are given to men; but when tendered to the gods, they are described as being dedicated, made sacred, or are called sacrifices. Renunciation was the negative form of propitiation; sacrifice became the positive form. The act of propitiation included praise, glorification, flattery, and even entertainment. And it is the remnants of these positive practices of the olden propitiation cult that constitute the modern forms of divine worship. Present-day forms of worship are simply the ritualization of these ancient sacrificial techniques of positive propitiation.

89:4.8 (978.5) Animal sacrifice meant much more to primitive man than it could ever mean to modern races. These barbarians regarded the animals as their actual and near kin. As time passed, man became shrewd in his sacrificing, ceasing to offer up his work animals. At first he sacrificed the *best* of everything, including his domesticated animals.

89:4.9 (978.6) It was no empty boast that a certain Egyptian ruler made when he stated that he had sacrificed: 113,433 slaves, 493,386 head of cattle, 88 boats, 2,756 golden images, 331,702 jars of honey and oil, 228,380 jars of wine, 680,714 geese, 6,744,428 loaves of bread, and 5,740,352 sacks of corn. And in order to do this he must needs have sorely taxed his toiling subjects.

89:4.10 (978.7) Sheer necessity eventually drove these semisavages to eat the material part of their sacrifices, the gods having enjoyed the soul thereof. And this custom found justification under the pretense of the ancient sacred meal, a communion service according to modern usage.

교제 봉사라는 구실 아래에서 정당성을 발견했다.

제 5 장. 희생 제물과 식인(食人) 풍습

초기 시대의 식인 풍습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념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초기 사회의 사회관례들 중의 일부분이었다. 식인 풍습이 현대의 문명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끔찍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그것은 원시적인 사회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구조의 일부분이었다. 집단적인 유익을 위하여 식인 풍습의 실천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궁핍함의 압박감에서 발생되었고, 미신과 무지에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었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군사적 관습이었다.

초기의 사람은 사람을 먹었다; 사람의 살을 맛있게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원시적인 하느님들과 영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음식으로 바쳤다. 귀신이 된 영들은 단순히 변형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은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영들에게도 음식이 가장 중요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식인 풍습은 진화하는 종족들 사이에서 한때 거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산기들은 모두 식인 풍습을 갖고 있었지만, 안돈-사람들은 기원적으로는 그러한 풍습이 없었고, 낫-사람들과 아담-사람들도 그러하였다; 안드-사람들도 진화하는 종족들과 심하게 섞인 이후까지 그러한 풍습이 없었다.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배고픔, 우정, 복수심, 또는 종교 의식을 통하여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고기를 먹는 것은 습관적인 식인 풍습으로 변하였다. 사람을 먹는 것은, 숨어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음식 부족 때문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에스키모들과 초기의 안돈-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인 풍습이 없었다. 적색인종, 특별히 중앙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들은 사람을 먹었다. 분만을 하면서 잃은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것이 원시적인 어머니들에게 한때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었으며, 퀴즐랜드에서는 아직도 첫 아이를 죽여서 먹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식인 풍습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에 의해 하나의 전쟁을 벌이는 방법, 이웃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종의 소름끼치는 일로 고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어떤 식인 풍습은 한 때 우월하였던 혈통들의 퇴화에서 기인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대개 진화적인 인종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자기 적들에 대해서 격렬하고 냉혹한 감정을 체험하였을 때 발생되었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복수에 대한 엄숙한 예식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의 귀신이 파괴되거나 또는 먹는 사람의 귀신과 융합된다고 믿었다. 요술쟁이들이 인간의 살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다는 믿음이 한 때 널리 퍼져 있었다.

5. SACRIFICES AND CANNIBALISM

89:5.1 (978.8) Modern ideas of early cannibalism are entirely wrong; it was a part of the mores of early society. While cannibalism is traditionally horrible to modern civilization, it was a part of the social and religious structure of primitive society. Group interests dictated the practice of cannibalism. It grew up through the urge of necessity and persisted because of the slavery of superstition and ignorance. It was a social, economic, religious, and military custom.

89:5.2 (979.1) Early man was a cannibal; he enjoyed human flesh, and therefore he offered it as a food gift to the spirits and his primitive gods. Since ghost spirits were merely modified men, and since food was man's greatest need, then food must likewise be a spirit's greatest need.

89:5.3 (979.2) Cannibalism was once well-nigh universal among the evolving races. The Sangiks were all cannibalistic, but originally the Andonites were not, nor were the Nodites and Adamites; neither were the Andites until after they had become grossly admixed with the evolutionary races.

89:5.4 (979.3) The taste for human flesh grows. Having been started through hunger, friendship, revenge, or religious ritual, the eating of human flesh goes on to habitual cannibalism. Man-eating has arisen through food scarcity, though this has seldom been the underlying reason. The Eskimos and early Andonites, however, seldom were cannibalistic except in times of famine. The red men, especially in Central America, were cannibals. It was once a general practice for primitive mothers to kill and eat their own children in order to renew the strength lost in childbearing, and in Queensland the first child is still frequently thus killed and devoured. In recent times cannibalism has been deliberately resorted to by many African tribes as a war measure, a sort of frightfulness with which to terrorize their neighbors.

89:5.5 (979.4) Some cannibalism resulted from the degeneration of once superior stocks, but it was mostly prevalent among the evolutionary races. Man-eating came on at a time when men experienced intense and bitter emotions regarding their enemies. Eating human flesh became part of a solemn ceremony of revenge; it was believed that an enemy's ghost could, in this way, be destroyed or fused with that of the eater. It was once a widespread belief that wizards attained their powers by eating human flesh.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집단들은 오직 자기 부족민만을 먹었는데, 허위적인 영적 근친결혼이 부족의 단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힘을 충당시킨다는 관념에서 원한을 갚기 위해 적을 잡아먹었다. 동료 부족 또는 친구의 시체를 먹는 것이 그 혼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된 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적에게는 다만 확실한 형벌이 되었을 뿐이었다. 미개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순들이 있었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나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기를 원하였다; 또 어떤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가까운 친족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관습이 있었다; 그들의 시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팔리거나 또는 그들의 시체들과 교환되었다. 도살하기 위하여 살을 찌게 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거래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질병이나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통제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과잉된 숫자를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잡아먹었다.

식인 풍습이 점차적으로 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 때문이었다:

1. 그것이 때로는 공동 사회의 예식, 동료 부족에게 사형이 부과된 것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전체가, 공동체가 참여할 때에는 살인죄가 범죄가 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식인 풍습은 이와 같이 사형이 집행된 죄수를 먹는 것이었다.

2. 그것이 매우 일찍부터 종교적인 예식이 되었지만, 귀신에 대한 증대되는 두려움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줄여주도록 항상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3. 결국에는 시체의 특정 부위 또는 기관들만을 먹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부위들은 혼을 담고 있거나 영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를 마시는 일이 일반화되었고, 육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약품과 섞는 것이 관습이었다.

4. 그것이 남자들에게 제한되었고; 여자들은 사람의 살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5. 그 다음에는 족장들과 사제들 그리고 무당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6. 그 후에는 그것이 보다 높은 부족들 사이에서 금기가 되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금기는 달라마시아에서 기원되었고 서서히 온 세계에 퍼져 나갔다. 낯-사람들은 식인 풍습에 대항하기 위하여 화장하는 것을 권장하였는데, 땅에 묻은 시체들을 다시 파내서 먹는 것이 한 때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7.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육체는 우월한 사람들, 우두머리들의 음식이었으며, 그것은 결국에는 더욱 우월한 영들을 위해 남겨졌고, 그리하여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을 효과적으로 멈추게 하였으나, 가장 열등한 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인간을

89:5.6 (979.5) Certain groups of man-eaters would consume only members of their own tribes, a pseudospiritual inbreeding which was supposed to accentuate tribal solidarity. But they also ate enemies for revenge with the idea of appropriating their strength. It was considered an honor to the soul of a friend or fellow tribesman if his body were eaten, while it was no more than just punishment to an enemy thus to devour him. The savage mind made no pretensions to being consistent.

89:5.7 (979.6) Among some tribes aged parents would seek to be eaten by their children; among others it was customary to refrain from eating near relations; their bodies were sold or exchanged for those of strangers. There was considerable commerce in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fattened for slaughter. When disease or war failed to control population, the surplus was unceremoniously eaten.

89:5.8 (979.7) Cannibalism has been gradually disappearing because of the following influences:

89:5.9 (979.8) 1. It sometimes became a communal ceremony, the assumption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inflicting the death penalty upon a fellow tribesman. The blood guilt ceases to be a crime when participated in by all, by society. The last of cannibalism in Asia was this eating of executed criminals.

89:5.10 (979.9) 2. It very early became a religious ritual, but the growth of ghost fear did not always operate to reduce man-eating.

89:5.11 (979.10) 3. Eventually it progressed to the point where only certain parts or organs of the body were eaten, those parts supposed to contain the soul or portions of the spirit. Blood drinking became common, and it was customary to mix the “edible” parts of the body with medicines.

89:5.12 (980.1) 4. It became limited to men; women were forbidden to eat human flesh.

89:5.13 (980.2) 5. It was next limited to the chiefs, priests, and shamans.

89:5.14 (980.3) 6. Then it became taboo among the higher tribes. The taboo on man-eating originated in Dalamatia and slowly spread over the world. The Nodites encouraged cremation as a means of combating cannibalism since it was once a common practice to dig up buried bodies and eat them.

89:5.15 (980.4) 7. Human sacrifice sounded the death knell of cannibalism. Human flesh having become the food of superior men, the chiefs, it was eventually reserved for the still more superior spirits; and thus the offering of human sacrifices effectively put a stop to cannibalism, except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자리를 잡게 되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금기가 되었다; 인간의 육체는 오직 하느님들에게만 양식이 되었고; 사람은 예식으로 작은 조각, 성찬만을 먹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물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일반화되었으며, 더욱 진보가 늦은 부족들 사이에서도 개를 잡아먹음으로써 사람을 먹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개는 최초로 길들여진 동물이었으며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음식으로 가장 존중되었다.

제 6 장. 인간 희생제물의 진화

인간 희생제물은 식인 풍습의 간접적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제였다. 영을 호위하여 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려는 노력 역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줄여주었는데, 희생제물로 제공했던 시체를 먹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실천 관행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난 종족은 없었으며, 심지어는 안돈-사람들과 낫-사람들 그리고 아담-사람들도 가장 미미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식인 풍습이 있었다.

인간 희생제물은 실질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중국인, 힌두인, 이집트인,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의 종교적인 관습 속에 계속 존재하였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발달이 늦은 아프리카인과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다. 후대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미 식인 풍습에서 벗어난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앙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는 인간 희생제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갈대아인들은 평범한 경우에 인간 희생제물을 거부하고 동물로 대치시켰던 최초의 사람들에 속하였다. 약 2,000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느 인종 많은 황제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대신에 진흙으로 만든 형상을 제공하도록 가르쳤지만, 이러한 희생제물이 북부 유럽에서 소멸된 지 1,000년이 채 못 되었다. 발달이 늦은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인간 희생제물이 지원자들, 일종의 종교적 또는 제례적 자살 행위에 의해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 어떤 무당은 한 때 특정한 부족 중에서 매우 존중을 받는 노인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 노인은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를 죽이게 하였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을 실제로 믿었다.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 예벳다와 그의 외팔에 대한 히브리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일은 없을 것인데, 고대의 전통적인 관습과 진보적인 문명의 상반되는 요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슴을 찢는 듯한 갈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관습대로, 마음씨 좋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는데, “전쟁의 신”과 흥정을 하여, 적을 물리치게 해 주는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

among the lowest tribes. When human sacrifice was fully established, man-eating became taboo; human flesh was food only for the gods; man could eat only a small ceremonial bit, a sacrament.

89:5.16 (980.5) Finally animal substitutes came into general use for sacrificial purposes, and even among the more backward tribes dog-eating greatly reduced man-eating. The dog was the first domesticated animal and was held in high esteem both as such and as food.

6. EVOLUTION OF HUMAN SACRIFICE

89:6.1 (980.6) Human sacrifice was an indirect result of cannibalism as well as its cure. Providing spirit escorts to the spirit world also led to the lessening of man-eating as it was never the custom to eat these death sacrifices. No race has been entirely free from the practice of human sacrifice in some form and at some time, even though the Andonites, Nodites, and Adamites were the least addicted to cannibalism.

89:6.2 (980.7) Human sacrifice has been virtually universal; it persisted in the religious customs of the Chinese, Hindus, Egyptians, Hebrews, Mesopotamians, Greeks, Romans, and many other peoples, even on to recent times among the backward African and Australian tribes. The later American Indians had a civilization emerging from cannibalism and, therefore, steeped in human sacrifice, especially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Chaldeans were among the first to abandon the sacrificing of humans for ordinary occasions, substituting therefor animals. About two thousand years ago a tenderhearted Japanese emperor introduced clay images to take the place of human sacrifices, but it was less than a thousand years ago that these sacrifices died out in northern Europe. Among certain backward tribes, human sacrifice is still carried on by volunteers, a sort of religious or ritual suicide. A shaman once ordered the sacrifice of a much respected old man of a certain tribe. The people revolted; they refused to obey. Whereupon the old man had his own son dispatch him; the ancients really believed in this custom.

89:6.3 (980.8) There is no more tragic and pathetic experience on record, illustrative of the heart-tearing contentions between ancient and time-honored religious customs and the contrary demands of advancing civilization, than the Hebrew narrative of Jephthah and his only daughter. As was common custom, this well-meaning man had made a foolish vow, had bargained with the “god of battles,” agreeing to pay

갈 때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북다는 자신의 믿을만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일은 자기 딸에게 벌어졌고 유일한 자식이 뛰어나와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리고 문명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소녀는 두 달 동안 자기 숙명에 대해 슬피 운 후에,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부족민들의 동의하에 실제적으로 인간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 모세의 법 앞에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남녀 어른들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맹세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노인들은 그러한 모든 서약들을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다.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 건물이 지어질 때, 한 사람을 죽여서 “기초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귀신이 된 영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감시하고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종(鐘)을 주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종의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관습에 의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녀를 희생제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선택된 그 소녀는 용해된 쇠물 속으로 산체로 던져졌다.

중요한 성벽 속에 노예들을 산체로 집어넣는 것이 여러 집단들의 오랫동안의 실천 관행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새로운 건물의 벽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이러한 관습 대신에 지나가는 유령을 가두어 두려고 하였다. 중국인들은 건물을 짓다가 죽은 인부들을 벽 속에 묻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인색한 왕은 여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자기 첫 번째 아들인 아비람을 그 기초를 위해 제공했고 그 성문들을 위해서는 막내 아들인 스굽을 제공했다.” 그러한 후대의 시대에, 그 아버지는 그 성문의 기초석 구멍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산체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세는 기초를 위한 이러한 희생제물을 금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은 직후에 되돌아갔다. 새로운 건물의 주춧돌 속에 장신구들과 기념품들을 보관시키는 20세기의 예식은 기초를 위해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원시적 형태의 흔적이다.

첫 열매를 영들에게 바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된 이러한 관례들은 모두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던 옛 예식들의 유물들이다. 첫-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멀리 퍼져 있었는데, 특히 페니키아인들은 그것을 포기한 최후의 민족이었다. 희생제물을 바칠 때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제 너희는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억지로 희생제물로 제공하려던 장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문명화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 당시

a certain price for victory over his enemies. And this price was to make a sacrifice of that which first came out of his house to meet him when he returned to his home. Jephthah thought that one of his trusty slaves would thus be on hand to greet him, but it turned out that his daughter and only child came out to welcome him home. And so, even at that late date and among a supposedly civilized people, this beautiful maiden, after two months to mourn her fate, was actually offered as a human sacrifice by her father, and with the approval of his fellow tribesmen. And all this was done in the face of Moses' stringent rulings against the offering of human sacrifice. But men and women are addicted to making foolish and needless vows, and the men of old held all such pledges to be highly sacred.

89:6.4 (981.1) In olden times, when a new building of any importance was started, it was customary to slay a human being as a “foundation sacrifice.” This provided a ghost spirit to watch over and protect the structure. When the Chinese made ready to cast a bell, custom decreed the sacrifice of at least one maide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tone of the bell; the girl chosen was thrown alive into the molten metal.

89:6.5 (981.2) It was long the practice of many groups to build slaves alive into important walls. In later times the northern European tribes substituted the walling in of the shadow of a passerby for this custom of entombing living persons in the walls of new buildings. The Chinese buried in a wall those workmen who died while constructing it.

89:6.6 (981.3) A petty king in Palestine, in building the walls of Jericho, “laid the foundation thereof in Abiram, his first-born, and set up the gates thereof in his youngest son, Segub.” At that late date, not only did this father put two of his sons alive in the foundation holes of the city's gates, but his action is also recorded as being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Moses had forbidden these foundation sacrifices, but the Israelites reverted to them soon after his death. The twentieth-century ceremony of depositing trinkets and keepsakes in the cornerstone of a new building is reminiscent of the primitive foundation sacrifices.

89:6.7 (981.4) It was long the custom of many peoples to dedicate the first fruits to the spirits. And these observances, now more or less symbolic, are all survivals of the early ceremonies involving human sacrifice. The idea of offering the first-born as a sacrifice was widespread among the ancients, especially among the Phoenicians, who were the last to give it up. It used to be said upon sacrificing, “life for life.” Now you say at death, “dust to dust.”

89:6.8 (981.5) The spectacle of Abraham constrained to sacrifice his son Isaac, while shocking to civilized susceptibilities, was not a new or strange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심한 감정적 압박감에 짓눌린 아버지들이 첫-태생의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진 실천 관행이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와 유사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비범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한 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제 7 장. 인간 희생제물의 변형

모세는 몸값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인간 희생제물을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맹세로부터 기인되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명세서를 제정하였다. 땅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은 정해진 값으로 다시 살 수 있었는데, 그 속전(贖錢)은 사제들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첫-태생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일을 멈추게 된 그 집단들은, 이러한 잔학한 행위를 계속하는 덜 진보된 이웃 민족들보다 곧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되었다. 진보가 늦은 그러한 부족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여 아들들을 잃어버림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도권의 계승이 종종 무너짐으로써 힘이 약해졌다.

첫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관습은 아이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러한 일은 그 해의 신성한 축제들 중의 하나와 관련하여 종종 이루어졌으며, 이 의식은 한때 멕시코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집단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종교예식을 멈춘 후에도, 갓난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광야에 두거나 또는 배 위에 혼자 태워서 물위에 띄워놓는 관습이 있었다. 만일에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하느님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르곤과 모세와 고레스 그리고 로물루스에 관한 전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아들들을 신성한 존재로 또는 산 제물로 바치는 실천 관행이 생겨나서, 그들을 자라게 한 뒤에 죽이는 대신 멀리 떠나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이 식민지 형성의 기원이 되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식민지화를 이룩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습을 고수하였다.

원시적인 경배 형태와 성(性) 방종이 독특하게 결합된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과 관련하여 기원되었다. 아주 옛날에는, 만일 여인이 인간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性)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후대에는, 하느님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소녀는 자기 몸을 신전에서의 신성한 성(性) 봉사의 삶으로 바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할 때 대속(代贖)의 돈을 벌 수도 있었다. 옛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자기 생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고상한 것으로 여겼

idea to the men of those days. It was long a prevalent practice for fathers, at times of great emotional stress, to sacrifice their first-born sons. Many peoples have a tradition analogous to this story, for there once existed a world-wide and profound belief that it was necessary to offer a human sacrifice when anything extraordinary or unusual happened.

7.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89:7.1 (961.6) Moses attempted to end human sacrifices by inaugurating the ransom as a substitute. He established a systematic schedule which enabled his people to escape the worst results of their rash and foolish vows. Lands, properties, and children could be redeem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fees, which were payable to the priests. Those groups which ceased to sacrifice their first-born soon possessed great advantages over less advanced neighbors who continued these atrocious acts. Many such backward tribes were not only greatly weakened by this loss of sons, but even the succession of leadership was often broken.

89:7.2 (962.1) An outgrowth of the passing child sacrifice was the custom of smearing blood on the house doorpo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first-born. This was often done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 sacred feasts of the year, and this ceremony once obtained over most of the world from Mexico to Egypt.

89:7.3 (962.2) Even after most groups had ceased the ritual killing of children, it was the custom to put an infant away by itself, off in the wilderness or in a little boat on the water. If the child survived, it was thought that the gods had intervened to preserve him, as in the traditions of Sargon, Moses, Cyrus, and Romulus. Then came the practice of dedicating the first-born sons as sacred or sacrificial, allowing them to grow up and then exiling them in lieu of death; this was the origin of colonization. The Romans adhered to this custom in their scheme of colonization.

89:7.4 (962.3) Many of the peculiar associations of sex laxity with primitive worship had their origin in connection with human sacrifice. In olden times, if a woman met head-hunters, she could redeem her life by sexual surrender. Later, a maiden consecrated to the gods as a sacrifice might elect to redeem her life by dedicating her body for life to the sacred sex service of the temple; in this way she could earn her redemption money. The ancients regarded it as highly elevating to have sex relations with a woman thus engaged in ransoming her life. It was a religious ceremony to

다. 이러한 신성시되는 여자와 동침하는 일은 종교적인 예식이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전체의 예식은 진부한 성적인 충족을 위한 구실을 제공해주었다. 이것은 그 여인들과 상대 남성들 양쪽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즐기는 미묘한 종류의 자아-기만이였다. 그러한 사회관례는 문명의 진화적 발전을 항상 방해하였으며, 진화하는 종족들의 먼 옛날의 더욱 야만적인 성적 실천 관행들이 그런 식으로 허용되었다.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는 결국에는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도 널리 퍼졌다. 신전 매춘 행위로 번돈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것으로—하느님들에게 바쳐진 최고의 선물—간주되었다. 가장 고상한 부류의 여인들이 신전에서의 매춘 시장에 몰려들었고 자기들이 번 돈을 온갖 종류의 신성한 봉사들과 공공의 선한 사업에 바쳤다. 더욱 고상한 부류의 여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의 일시적인 성적 봉사를 통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였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다.

제 8 장. 대속(代贖)과 계약

희생 제물을 대속(代贖)으로 바치고 자유를 획득하는 일과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는 실체 안에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의 변형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들의 모형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 예식은 평생토록 처녀로 지내기로 봉헌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 전에 있었던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반향이었다. 더욱 근래에서는 성스러운 사원 불을 다루는 봉사에 처녀들이 스스로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 전체를 완벽하게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옛날의 관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육체를 손상시키는 일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머리카락, 손톱, 피,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후대의 그리고 거의 보편적으로 퍼진 고대의 할례 예식은 일부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예배종파에서 발생되었다; 순전히 종교적인 희생제물의 형식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위생학적인 개념은 전혀 없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고; 여자들은 귀에 구멍을 내었다.

그 후에는 손가락들을 자르는 대신에 그것들을 묶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역시 종교적인 헌신의 형태들이었다. 내시를 만드는 일은 처음에는 인간 희생제물 관념의 변형이었다. 코와 귀를 뚫는 행위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몸에 상처를 내는 초기의 조잡한 실천 관행이 예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희생제물의 관습은, 진보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계약의 관념과 결국에는 결합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하느님들이 사람과 실제적인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종교가 안정을 이

consort with these sacred maidens, and in addition, this whole ritual afforded an acceptable excuse for commonplace sexual gratification. This was a subtle species of self-deception which both the maidens and their consorts delighted to practice upon themselves. The mores always drag behind in the evolutionary advance of civilization, thus providing sanction for the earlier and more savagelike sex practices of the evolving races.

89:7.5 (982.4) Temple harlotry eventually spread throughout southern Europe and Asia. The money earned by the temple prostitutes was held sacred among all peoples — a high gift to present to the gods. The highest types of women thronged the temple sex marts and devoted their earnings to all kinds of sacred services and works of public good. Many of the better classes of women collected their dowries by temporary sex service in the temples, and most men preferred to have such women for wives.

8. REDEMPTION AND COVENANTS

89:8.1 (982.5) Sacrificial redemption and temple prostitution were in reality modifications of human sacrifice. Next came the mock sacrifice of daughters. This ceremony consisted in bloodletting, with dedication to lifelong virginity, and was a moral reaction to the older temple harlotry. In more recent times virgins dedica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ending the sacred temple fires.

89:8.2 (982.6) Men eventually conceived the idea that the offering of some part of the body could take the place of the older and complete human sacrifice. Physical mutilation was also considered to be an acceptable substitute. Hair, nails, blood, and even fingers and toes were sacrificed. The later and well-nigh universal ancient rite of circumcision was an outgrowth of the cult of partial sacrifice; it was purely sacrificial, no thought of hygiene being attached thereto. Men were circumcised; women had their ears pierced.

89:8.3 (983.1) Subsequently it became the custom to bind fingers together instead of cutting them off. Shaving the head and cutting the hair were likewise forms of religious devotion. The making of eunuchs was at first a modification of the idea of human sacrifice. Nose and lip piercing is still practiced in Africa, and tattooing is an artistic evolution of the earlier crude scarring of the body.

89:8.4 (983.2) The custom of sacrifice eventually became associated, as a result of advancing teachings, with the idea of the covenant. At last, the gods were conceived of as entering into real

루게 되는 주요 단계였다. 법, 계약이 운(運)과 두려움과 미신을 대치하였다.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신뢰할 만한 우주적 통제자의 차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神)과 계약을 맺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초기 관념은 너무나 사람모습의-신(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지할 수 있는 신(神)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관념이 결국에는 조성되었다. 진화적인 사람은 자신이 감히 자기 하느님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도덕적 존엄성을 마침내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사람이 하느님과 이성적으로 협상하는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운을 물리치는 대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대표하였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번영을 구입하기 위한 발전적인 기법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희생제물이 하느님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 혹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참된 경배의 표현이 아니었다.

원시적인 형태의 기도는 영들과의 협상, 하느님들과의 논쟁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물물 교환과 같은 것이었고, 그 속에 포함된 변론과 설득은, 보다 실체적이고 값이 나가는 어떤 것과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 종족들의 발전하는 교역(交易)은 매매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영리하게 물물 교환 하도록 발달시켰으며; 그 때부터 이 특색들이 사람의 경배 방식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인(商人)들이 되듯이,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매우 존중되었다. 의로운 사람이란 영들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마친, 하느님들에 대한 모든 예식적(禮式的)인 채무를 충분히 면제받은 사람이었다.

초기의 기도는 도저히 경배라 볼 수 없었다; 건강과 재산과 생명을 위하여 거래하고 있는 청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기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책들의 문구를 읽고, 형식적으로 외우고, 또한 종이 위에 적어서 바퀴에 붙여놓거나 나무에 매달아 걸고, 사람이 자신의 숨으로 불어주는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주는 나무에 매달았다.

제 9 장. 희생 제물과 성찬

인간 희생제물은, 유란시아의 종교예식들이 진화하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살벌한 일로부터 보다 높고 더욱 상징적인 차원으로 진보해 왔다.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초기의 예식이 후대의 성례 예식을 탄생시켰다. 더욱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제가 혼자서 야만적인 희생제물 한 조각을 먹거나 소량의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agreements with man; and this was a major step in the stabilization of religion. Law, a covenant, takes the place of luck, fear, and superstition.

89:8.5 (983.3) Man could never even dream of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Deity until his concept of God had advanced to the level whereon the universe controllers were envisioned as dependable. And man's early idea of God was so anthropomorphic that he was unable to conceive of a dependable Deity until he himself became relatively dependable, moral, and ethical.

89:8.6 (983.4) But the idea of making a covenant with the gods did finally arrive. *Evolutionary man eventually acquired such moral dignity that he dared to bargain with his gods.* And so the business of offering sacrifices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game of man's philosophic bargaining with God. And all this represented a new device for insuring against bad luck or, rather, an enhanced technique for the more definite purchase of prosperity. Do not entertain the mistaken idea that these early sacrifices were a free gift to the gods, a spontaneous offering of gratitude or thanksgiving; they were not expressions of true worship.

89:8.7 (983.5) Primitive forms of prayer were nothing more nor less than bargaining with the spirits, an argument with the gods. It was a kind of bartering in which pleading and persuasion were substituted for something more tangible and costly. The developing commerce of the races had inculcated the spirit of trade and had developed the shrewdness of barter; and now these traits began to appear in man's worship methods. And as some men were better traders than others, so some were regarded as better prayers than others. The prayer of a just man was held in high esteem. A just man was one who had paid all accounts to the spirits, had fully discharged every ritual obligation to the gods.

89:8.8 (983.6) Early prayer was hardly worship; it was a bargaining petition for health, wealth, and life. And in many respects prayers have not much changed with the passing of the ages. They are still read out of books, recited formally, and written out for emplacement on wheels and for hanging on trees, where the blowing of the winds will save man the trouble of expending his own breath.

9. SACRIFICES AND SACRAMENTS

89:9.1 (983.7) The human sacrific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evolution of Urantian rituals, has advanced from the bloody business of man-eating to higher and more symbolic levels. The early rituals of sacrifice bred the later ceremonies of sacrament. In more recent times the priest alone would partake of a bit of the cannibalistic sacrifice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용품인 동물을 먹곤 하였다. 몸값과 대속(代贖) 그리고 계약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관념들은 후대의 성찬 예배봉사들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의식 진화는 강력하게 사회화 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멕시코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예배종파와 관련하여, 빵과 포도주로 구성된 성찬식이 결국에는 옛날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예식을 유월절 행사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실천해 왔으며, 후대에 그리스도교적 형태의 성찬이 탄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식으로부터였다.

고대의 사회적인 형제신분은 피를 마시는 예식에 기초를 두었다; 초기의 유대인 형제우애관계는 희생 제물의 피와 관련되어 있었다. 바울은 “영속하는 계약의 피”에 기초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피와 희생 제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에 방해 요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인간이나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대속(代贖) 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는 단호하게 중지부를 찍었다. 그의 신학적인 타협은 계시조차도 진화의 누진적인 통제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도 모든 것을-충만시킨 인간 희생 제물이 되었다; 신성한 재판관이 이제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만족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시대가 흐른 뒤에는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예배종파가 성례를 행하는 예배종파로 진화되었다. 현대 종교들의 성례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끔찍한 초기 예식과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을 잡아먹는 예식들을 합리적으로 뒤를 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위해 피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신비적인 것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제 10 장. 죄의 용서

고대의 사람은 희생 제물을 통한 하느님의 은혜만을 인식하였을 뿐이었다. 현대인은 구원에 대한 자아-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죄에 대한 인식은 필사자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의 생존에 대한 모형이 되는 개념은 진부한 것이 되었고 낡은 것이 되었다. 영적인 필요성에 대한 실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지적인 진보는 평화를 보장하는 구시대적 방법들을 파괴해 왔고 마음 그리고 혼을 위한 위로를 파괴해 왔다.

죄는 신(神)에 대한 고의적인 불충(不忠)으로 재(再)정의 되어야만 한다. 불충에는 정도가 있는데: 우유부단한 부분적 충성이 있고; 충돌을 일으키는 분열된 충성이 있다; 무관심이라는 사라져가는 충성이 있고; 신(神)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상(理想)에 헌신하는 죽은 충성이 있다.

or a drop of human blood, and then all would partake of the animal substitute. These early ideas of ransom, redemption, and covenants have evolved into the later-day sacramental services. And all this ceremonial evolution has exerted a mighty socializing influence.

89:9.2 (984.1) In connection with the Mother of God cult, in Mexico and elsewhere, a sacrament of cakes and wine was eventually utilized in lieu of the flesh and blood of the older human sacrifices. The Hebrews long practiced this ritual as a part of their Passover ceremonies, and it was from this ceremonial that the later Christian version of the sacrament took its origin.

89:9.3 (984.2) The ancient social brotherhoods were based on the rite of blood drinking; the early Jewish fraternity was a sacrificial blood affair. Paul started out to build a new Christian cult on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And while he may have unnecessarily encumbered Christianity with teachings about blood and sacrifice, he did once and for all make an end of the doctrines of redemption through human or animal sacrifices. His theologic compromises indicate that even revelation must submit to the graduated control of evolution. According to Paul, Christ became the last and all-sufficient human sacrifice; the divine Judge is now fully and forever satisfied.

89:9.4 (984.3) And so, after long ages the cult of the sacrifice has evolved into the cult of the sacrament. Thus are the sacraments of modern religions the legitimate successors of those shocking early ceremonies of human sacrifice and the still earlier cannibalistic rituals. Many still depend upon blood for salvation, but it has at least become figurative, symbolic, and mystic.

10. FORGIVENESS OF SIN

89:10.1 (984.4) Ancient man only attained consciousness of favor with God through sacrifice. Modern man must develop new techniques of achieving the self-consciousness of salvation. The consciousness of sin persists in the mortal mind, but the thought patterns of salvation therefrom have become outworn and antiquated.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need persists, but intellectual progress has destroyed the olden ways of securing peace and consolation for mind and soul.

89:10.2 (984.5) Sin must be redefined as deliberate disloyalty to Deity. There are degrees of disloyalty: the partial loyalty of indecision; the divided loyalty of confliction; the dying loyalty of indifference; and the death of loyalty exhibited in devotion to godless ideals.

범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은 사회관례의 위반에 대한 의식(意識)이다; 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다. 신(神)에 대한 의식적(意識的)인 불충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적인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죄책감의 감각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은 인류에게 있어서 초월적 특성의 표시이다. 그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인 위대성과 영원토록-상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구별시킨다. 그러한 무가치한 감각은, 필사자 마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숭고함과 조화우주인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생존이라는 놀라운 차원으로 옮겨주는 신앙적 승리로 신속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도하게 되는 최초의 충동이다; 그리하여 인간 실존의 모든 의미들은 현세로부터 영원으로 변화되고, 모든 가치들은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상승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불충에 대한 용감한 거절이지만, 그러한 불충에 대한 시간-공간 결말들을 결코 완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고백—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은 종교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죄에 대한 신(神)으로부터의 용서는, 고의적인 반항의 결과로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충성스러운 관계의 회복이다. 용서는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의 충성 관계의 재-확립에 대한 의식(意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충성스러운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를 향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늘 행복하고, 봉사를 좋아하며, 항상 진보를 이룩한다.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 제시되었음]

89:10.3 (984.6) The sense or feeling of guilt is the consc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he mores; it is not necessarily sin. There is no real sin in the absence of conscious disloyalty to Deity.

89:10.4 (984.7) The possibil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sense of guilt is a badge of transcendent distinction for mankind. It does not mark man as mean but rather sets him apart as a creature of potential greatness and ever-ascending glory. Such a sense of unworthiness is the initial stimulus that should lead quickly and surely to those faith conquests which translate the mortal mind to the superb levels of moral nobility, cosmic insight, and spiritual living; thus are all the meanings of human existence changed from the temporal to the eternal, and all values are elevated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89:10.5 (984.8) The confession of sin is a manful repudiation of disloyalty, but it in no wise mitigates the time-space consequences of such disloyalty. But confession — sincere recognition of the nature of sin — is essential to religious growth and spiritual progress.

89:10.6 (985.1) The forgiveness of sin by Deity is the renewal of loyalty relations following a period of the human consciousness of the lapse of such relations as the consequence of conscious rebellion. The forgiveness does not have to be sought, only received as the consciousness of re-establishment of loyalty relations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And all the loyal sons of God are happy, service-loving, and ever-progressive in the Paradise ascent.

89:10.7 (985.2) [Presented by a Brilliant Evening Star of Nebadon.]

제 90 편 샤머니즘—주술사와 사제

⇨ 089

유랜시아 책

091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0 편 샤머니즘—주술사와 사제

색션

소개

- 제 1 장. 최초의 무당—주술사(呪術師)들
 제 2 장. 주술 신앙의 실천 관행
 제 3 장.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적 견해
 제 4 장. 무당들이 장악한 약품
 제 5 장. 사제(司祭)와 종교예식

PAPER 90

SHAMANISM — MEDICINE MEN
AND PRIEST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irst Shamans — The Medicine Men
 2. Shamanistic Practices
 3. The Shamanic Theory of Disease and Death
 4. Medicine under the Shamans
 5. Priests and Rituals

소개

종교적인 관례들은 달래기, 피하기, 쫓아내기, 강압, 회유, 그리고 화해로부터 진화하여 희생 제물, 죄 값, 대속에 이르게 되었다. 종교적 예식 기법은 원시적인 예배종파의 형태들로부터 주물 숭배를 거쳐 마술과 이적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초물질적 영역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됨으로써 예식도 더욱 복잡하게 되자, 그 기술은 주술사들과 무당들 그리고 사제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원시인의 진보적인 개념 중에서 영적인 세계는 결국에는 평범한 필사자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간들 중에서 오로지 예외적인 사람들만이 하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별한 남자 또는 여자만이 영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종교는 새로운 위상, 그것이 점차적으로 매개자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배의 대상물과 종교인 사이에는 언제나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가 개입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유랜시아에 있는 체계화된 종교적 신앙 체계들 대부분은 진화적 발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INTRODUCTION

90:0.1 (986.1) THE evolution of religious observances progressed from placation, avoidance, exorcism, coercion, conciliation, and propitiation to sacrifice, atonement, and redemption. The technique of religious ritual passed from the forms of the primitive cult through fetishes to magic and miracles; and as ritual became more complex in response to man's increasingly complex concept of the supermaterial realms, it was inevitably dominated by medicine men, shamans, and priests.

90:0.2 (986.2) In the advancing concepts of primitive man the spirit world was eventually regarded as being unresponsive to the ordinary mortal. Only the exceptional among humans could catch the ear of the gods; only the extraordinary man or woman would be heard by the spirits. Religion thus enters upon a new phase, a stage wherein it gradually becomes secondhanded; always does a medicine man, a shaman, or a priest intervene between the religionist and the object of worship. And today most Urantia systems of organized religious belief are passing through this level of evolutionary development.

진화 종교는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마음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단순하지만 강력한 두려움으로부터 탄생되었다. 종교는 결국에는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에 있는 아들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진다는 개념을 깨우치면서 인간의 혼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휘몰아치는 사랑, 어떤 만능이신 사랑에 대한 깊고도 단순한 실현을 성취한다. 그러나 종교적 진화의 시초와 절정 사이에는, 오랜 동안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중개자, 통역자 그리고 중재자로 서 있다고 자처하는 무당들의 시대가 차지한다.

제 1 장. 최초의 무당-주술사(呪術師)들

무당은 뛰어난 주술사였고, 제례적인 맹목적 숭배 대상이었으며, 진화 종교의 모든 실천 관행들에 대한 중심인물이었다. 많은 집단들에서는 무당이 전쟁터의 우두머리보다도 지위가 높았는데, 그 나라의 교파(敎派)의 발단을 결정지었다. 무당은 때로 사제로 활동하였고 심지어는 사제-왕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후대의 부족들 중에서 어떤 부족들의 경우에는 초기의 무당-주술사(선지자)와 후대에 나타난 무당-사제가 동시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무당의 직책은 세습적인 것이었다.

옛날에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영에 의해 사로잡힌 탓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두드러진 정신병 또는 육체적인 기형이 주술사가 되기 위한 분별된-자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남자들 중에는 간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히스테리 환자가 많았으며, 이러한 두 가지 유형들은 고대의 신통력뿐만 아니라 영과 악마에 사로잡힌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초기 사제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그 때부터 편집증 환자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속임수를 실천할 수도 있었던 반면, 무당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영에 사로잡혀있음을 사실로 믿었다. 최면 상태나 몸이 굳는 발작상태에 스스로 빠져들어 갈 수 있는 여자들은 강력한 여자 무당이 되었다; 나중에는 그러한 여자들이 선지자 또는 영매자들이 되었다. 강경증에 의한 그들의 혼수상태는 대개 죽은 사람의 귀신들과 교통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여자 무당들은 전문적인 무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무당들이 자아-기만적인 것은 아니었다; 영리한 사람들과 유능한 요술쟁이들이 많았다. 그 직업이 발달하게 되자, 초보자들에게는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봉사 기간이 요구되었고 주술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아-부정이 요구되었다. 무당들은 전문적인 형태의

90:0.3 (986.3) Evolutionary religion is born of a simple and all-powerful fear, the fear which surges through the human mind when confronted with the unknown, the inexplicable, and the incomprehensible. Religion eventually achieves the profoundly simple realization of an all-powerful love, the love which sweeps irresistibly through the human soul when awakened to the conception of the limitless affe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for the sons of the universe. But in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consummation of religious evolution, there intervene the long ages of the shamans, who presume to stand between man and God as intermediaries, interpreters, and intercessors.

1. THE FIRST SHAMANS — THE MEDICINE MEN

90:1.1 (986.4) The shaman was the ranking medicine man, the ceremonial fetishman, and the focus personality for all the practices of evolutionary religion. In many groups the shaman outranked the war chief,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church domination of the state. The shaman sometimes functioned as a priest and even as a priest-king. Some of the later tribes had both the earlier shaman-medicine men (seers) and the later appearing shaman-priests. And in many cases the office of shaman became hereditary.

90:1.2 (986.5) Since in olden times anything abnormal was ascribed to spirit possession, any striking mental or physical abnormality constituted qualification for being a medicine man. Many of these men were epileptic, many of the women hysteric, and these two types accounted for a good deal of ancient inspiration as well as spirit and devil possession. Quite a few of these earliest of priests were of a class which has since been denominated paranoiac.

90:1.3 (987.1) While they may have practiced deception in minor matters, the great majority of the shamans believed in the fact of their spirit possession. Women who were able to throw themselves into a trance or a cataleptic fit became powerful shamanesses; later, such women became prophets and spirit mediums. Their cataleptic trances usually involved alleged communications with the ghosts of the dead. Many female shamans were also professional dancers.

90:1.4 (987.2) But not all shamans were self-deceived; many were shrewd and able tricksters. As the profession developed, a novice was required to serve an apprenticeship of ten years of hardship and self-denial to qualify as a medicine man. The shamans developed a professional

복장을 개발하였고 신비스러운 행위를 꾸며내었다. 그들은 부족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특정한 육체적인 상태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재빠른 손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영리한 사제들이 복화술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옛 무당들 중에는 최면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배꼽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쳐다봄으로서 자기최면에 걸리도록 유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술과 속임수를 이용한 반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그들의 명성은 결국 걸스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무당이 자기 일에 실패하였을 때, 만일에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위를 잃거나 살해되었다. 그래서 정직한 무당들은 일찍 죽었고; 오직 약삭빠른 연기자들만이 살아남았다.

부족의 관련사들에 대한 배타적인 지도권을 노인들과 강자들의 손으로부터 회수하여 약삭빠른 자들과 영리한 자들 그리고 선견지명이 있는 자들의 손에 맡기게 한 것은 바로 샤머니즘이었다.

제 2 장. 주술 신앙의 실천 관행

영을 불러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심히 복잡한 과정인데, 지금-현재 교회의 경배에서 옛날 말투를 사용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인간 종족은 매우 일찍부터 초인간적 존재의 도움, 계시를 추구하였다; 사람들은 무당이 실제로 그러한 계시들을 받아들인다고 믿었다. 무당들이 자신의 일에 암시 방법이 갖는 큰 힘을 활용하였지만 그것은 거의 변함없이 부정적인 암시였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긍정적인 암시 기법이 활용되게 되었다. 무당들의 전문 직업이 발달하던 초기에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고 병을 고치며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분야로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질병을 고치는 일은 무속적인 마력사의 주요 기능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 속에서의 위험한 상황들을 알아내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세속적이었던 고대의 흑(黑)마술은, 그것이 사제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무당들이나 묘약 제조자들에 의해서 실천될 때에는 백(白)마술로 여겨졌다. 흑(黑)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술사, 요술쟁이, 마법사, 마녀, 요술사, 강신술사, 마술사, 그리고 주술사로 불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마술 또는 주술로 분류되었다.

옛날의 비정상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영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요술은 마술을 포용하였다; 주술(呪術)은 부족의 알려진 하느님들과 정상적인 영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여겨지는 기적들을 행해야만 했다. 후대에 이르러서 요술쟁이는 악마와 연관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근의 상당

mode of dress and affected a mysterious conduct. They frequently employed drugs to induce certain physical states which would impress and mystify the tribesmen. Sleight-of-hand feats were regarded as supernatural by the common folk, and ventriloquism was first used by shrewd priests. Many of the olden shamans unwittingly stumbled onto hypnotism; others induced autohypnosis by prolonged staring at their navels.

90:1.5 (987.3) While many resorted to these tricks and deceptions, their reputation as a class, after all, stood on apparent achievement. When a shaman failed in his undertakings, if he could not advance a plausible alibi, he was either demoted or killed. Thus the honest shamans early perished; only the shrewd actors survived.

90:1.6 (987.4) It was shamanism that took the exclusive direction of tribal affairs out of the hands of the old and the strong and lodged it in the hands of the shrewd, the clever, and the farsighted.

2. SHAMANISTIC PRACTICES

90:2.1 (987.5) Spirit conjuring was a very precise and highly complicated procedure, comparable to present-day church rituals conducted in an ancient tongue. The human race very early sought for superhuman help, for *revelation*; and men believed that the shaman actually received such revelations. While the shamans utilized the great power of suggestion in their work, it was almost invariably negative suggestion; only in very recent times has the technique of positive suggestion been employed.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ir profession the shamans began to specialize in such vocations as rain making, disease healing, and crime detecting. To heal diseases was not, however, the chief function of a shamanic medicine man; it was, rather, to know and to control the hazards of living.

90:2.2 (987.6) Ancient black art, both religious and secular, was called white art when practiced by either priests, seers, shamans, or medicine men. The practitioners of the black art were called sorcerers, magicians, wizards, witches, enchanters, necromancers, conjurers, and soothsayers. As time passed, all such purported contact with the supernatural was classified either as witchcraft or shamancraft.

90:2.3 (987.7) Witchcraft embraced the *magic* performed by earlier, irregular, and unrecognized spirits; shamancraft had to do with *miracles* performed by regular spirits and recognized gods of the tribe. In later times the witch became associated with the devil, and thus was the stage

히 많은 종교적 편협의 무대가 그렇게 마련된 것이다. 많은 원시적 부족들에게 있어서 요술은 일종의 종교였다.

무당들은 운(運)의 역할을 영들의 뜻에 대한 계시적인 것으로 굳게 믿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제비를 뽑는 성향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운수를 바라는 많은 경기들에서 뿐만 아니라 “숫자를 세어-뽑아내기”는 유명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 때는 일단 뽑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장난 속에서만이 그렇게 된다. 원시인에게 심각한 일이었던 그러한 것이 현대 아이들의 기분전환으로 생존하고 있다.

주술사는 “팽나무 꼭대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더욱 분발해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적들과 징조들을 속에 커다란 신뢰감을 불어넣었다. 인류 역사의 매우 초기 시대부터 무당들은 별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원시적인 점성술은 범세계적인 신념 그리고 실천 관행이었다; 꿈 해몽 역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바로 뒤이어서,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증적인 그 여자 무당들이 출현하였다.

비를 만드는 이, 날씨 무당들은, 아주 옛날에 기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대를 거쳐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심각한 가뭄은 옛 농부들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날씨를 통제하는 일은 옛날에 있었던 대부분의 마술의 목적이었다. 문명화된 사람들도 여전히 날씨를 평범한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다. 옛 사람들은 모두 무당이 비를 만드는 자로서의 힘을 지닌다고 믿었지만, 그가 실패할 때 만약에 그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제시 못하는 경우에는 그를 죽이는 것이 관례였다.

시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점성가들을 추방시켰지만, 그들이 늘 다시 돌아온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추방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이후 16세기 이후까지도 서방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이 점성술을 신봉하였다. 행운의 별이나 불운의 별의 지배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과; 하늘에 있는 몸체와 나란히 놓여 있는 배열이 이 세상의 다양한 모험들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믿음; 수많은 지적 대중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아직도 점쟁이들은 귀가 얇은 사람들을 단골로 삼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신탁의 충고에 대한 효능을 믿었고, 중국인들은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마술을 이용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주술이 번성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주술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실천 관행이 된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때때로,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출현하여 사며니즘을 비난하고 그 가면을 벗기려고 하였다. 심지어는 사라져 가고 있는 적색 인종 사이에서도

set for the many comparatively recent exhibitions of religious intolerance. Witchcraft was a religion with many primitive tribes.

90:2.4 (987.8) The shamans were great believers in the mission of chance as revelatory of the will of the spirits; they frequently cast lots to arrive at decisions. Modern survivals of this proclivity for casting lots are illustrated, not only in the many games of chance, but also in the well-known “counting-out” rhymes. Once, the person counted out must die; now, he is only *it* in some childish game. That which was serious business to primitive man has survived as a diversion of the modern child.

90:2.5 (988.1) The medicine men put great trust in signs and omens, such as, “When you hear the sound of a rustling in the tops of the mulberry trees, then shall you bestir yourself.”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the race the shamans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stars. Primitive astrology was a world-wide belief and practice; dream interpreting also became widespread. All this was soon followed by the appearance of those temperamental shamanesses who professed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spirits of the dead.

90:2.6 (988.2) Though of ancient origin, the rain makers, or weather shamans, have persisted right on down through the ages. A severe drought meant death to the early agriculturists; weather control was the object of much ancient magic. Civilized man still makes the weather the common topic of conversation. The olden peoples all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shaman as a rain maker, but it was customary to kill him when he failed, unless he could offer a plausible excuse to account for the failure.

90:2.7 (988.3) Again and again did the Caesars banish the astrologers, but they invariably returned because of the popular belief in their powers. They could not be driven out, and even in the sixteenth century after Christ the directors of Occidental church and state were the patrons of astrology. Thousands of supposedly intelligent people still believe that one may be born under the domination of a lucky or an unlucky star; that the juxtaposition of the heavenly bodies determines the outcome of various terrestrial adventures. Fortunetellers are still patronized by the credulous.

90:2.8 (988.4) The Greeks believed in the efficacy of oracular advice, the Chinese used magic as protection against demons, shamanism flourished in India, and it still openly persists in central Asia. It is an only recently abandoned practice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90:2.9 (988.5) Ever and anon, true prophets and teachers arose to denounce and expose shamanism. Even the vanishing red man had

그러한 선지자들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쇼니족 사람 텐스콰타와는 1,808년에 태양의 일식을 예언하였고 백인들의 악행을 비난하였다. 오랜 기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여러 부족들과 종족들 속에서 많은 참된 선생들이 출현하였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 일반적인 교육을 반대하고 과학적인 진보를 훼방하려고 애쓰는 각 시대의 무당들 또는 사제들에게 대항할 것이다.

옛날의 무당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리고 사악한 방법에 의해서, 하느님의 대변자와 섭리의 보호관리자로 자신의 명성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들은 모든 장례 예식을 주관하였고, 죽은 자들이 영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든다고 여겨지는 안내문을 공표 하였다.

무속적인 사제들과 주술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영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금들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무당이 자기 부족의 물질적인 재산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자가 죽게 되면, 그의 재산을 어떤 공공 단체 또는 자선 단체와 무당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관습은 티베트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체 남자들의 절반이 비생산적인 이러한 부류에 속하여 있다.

무당들은 옷을 잘 입었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 최초의 귀족에 해당되었는데, 부족의 모든 제약 조건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들은 매우 열등한 마음과 도덕을 소유한 경우가 매우 흔하였다. 그들은 자기 경쟁자들을 마녀 또는 요술쟁이로 몰아서 탄압하였고, 우두머리들이나 왕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는 위치에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흔히 있었다.

원시인은 무당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옛 사람들은 지식을 높이 평가하였고; 지혜를 명예롭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무당은 대개 사기꾼이었지만, 샤머니즘에 대한 숭배는 그 종족의 진화에 있어서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음을 잘 나타내 준다.

제 3 장.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적 견해

고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물질적인 환경이 귀신들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영들의 호감을 사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종교가 물질적인 관련사들과 매우 배타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처한다; 마음의 지적인 조종에 따라 물질이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원시인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권역의 에너지들과 생명을 개

such a prophet within the past hundred years, the Shawnee Tenskwatawa, who predicted the eclipse of the sun in 1806 and denounced the vices of the white man. Many true teachers have appeared among the various tribes and races all through the long ages of evolutionary history. And they will ever continue to appear to challenge the shamans or priests of any age who oppose general education and attempt to thwart scientific progress.

90:2.10 (988.6) In many ways and by devious methods the olden shamans established their reputations as voices of God and custodians of providence. They sprinkled the newborn with water and conferred names upon them; they circumcised the males. They presided over all burial ceremonies and made due announcement of the safe arrival of the dead in spiritland.

90:2.11 (988.7) The shamanic priests and medicine men often became very wealthy through the accretion of their various fees which were ostensibly offerings to the spirits. Not infrequently a shaman would accumulate practically all the material wealth of his tribe. Upon the death of a wealthy man it was customary to divide his property equally with the shaman and some public enterprise or charity. This practice still obtains in some parts of Tibet, where one half the male population belongs to this class of nonproducers.

90:2.12 (989.1) The shamans dressed well and usually had a number of wives; they were the original aristocracy, being exempt from all tribal restrictions. They were very often of low-grade mind and morals. They suppressed their rivals by denominating them witches or sorcerers and very frequently rose to such positions of influence and power that they were able to dominate the chiefs or kings.

90:2.13 (989.2) Primitive man regarded the shaman as a necessary evil; he feared him but did not love him. Early man respected knowledge; he honored and rewarded wisdom. The shaman was mostly fraud, but the veneration for shamanism well illustrates the premium put upon wisdom in the evolution of the race.

3. THE SHAMANIC THEORY OF DISEASE AND DEATH

90:3.1 (989.3) Since ancient man regarded himself and his material environment as being directly responsive to the whims of the ghosts and the fancies of the spirits, it is not strange that his religion should have been so exclusively concerned with material affairs. Modern man attacks his material problems directly; he recognizes that matter is responsive to the intelligent manipulation of mind. Primitive man

선하고 심지어는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였지만; 조화우주에 대한 제한된 이해 때문에, 귀신들과 영들 그리고 하느님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생명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초인간적 대리자들의 호감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논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의 예배종파들 속에 있는 설명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들 대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배종파의 예식들은 원시인 자신이 자기가 서 있는 물질세계를 통제해 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가 하였던 노력들 대부분은 건강을 보장하고 삶을 연장시키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모든 질병들과 죽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무당들이 주술사와 사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시적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찾아온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며, 그들이 납득하는 바에 따라서 무당들과 과학자들은 불행의 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론들을 제시해 왔다:

1. 귀신—직접적인 영의 영향들. 질병과 죽음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한 가장 오래된 가정(假定)은 영들이 혼으로 하여금 육체로부터 빠져 나오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만약에 그 혼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귀신들의 심술궂은 행동을 너무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병든 개별존재를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로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신념들의 근거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든 개별존재들을 효과적으로 고립시켰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2. 폭력—명백한 원인들. 어떤 재난과 죽음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 쉽게 정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범주에서 일찍부터 제외되었다. 전쟁과 동물과의 격투 그리고 다른 어떤 용이하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자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치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자연적” 원인성으로 발생한 상처가 감염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눈에 보이는 당연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적인 귀신들이 여전히 그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폭력에 의하지 않고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이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사들이 죄가 있는 상대방들을 지적한다. 만약에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즉시 목을 졸라 죽었다—생명에는 생명으로.

likewise desired to modify and even to control the life and energies of the physical domains; and since his limited comprehension of the cosmos led him to the belief that ghosts, spirits, and gods were personally and immediately concerned with the detailed control of life and matter, he logically directed his efforts to winning the favor and support of these superhuman agencies.

90:3.2 (989.4) Viewed in this light, much of the inexplicable and irrational in the ancient cults is understandable. The ceremonies of the cult were primitive man's attempt to control the material world in which he found himself. And many of his efforts were directed to the end of prolonging life and insuring health. Since all diseases and death itself were originally regarded as spirit phenomena, it was inevitable that the shamans, while functioning as medicine men and priests, should also have labored as doctors and surgeons.

90:3.3 (989.5) The primitive mind may be handicapped by lack of facts, but it is for all that logical. When thoughtful men observe disease and death, they set about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se vis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understanding, the shamans and the scientists have propounded the following theories of affliction:

90:3.4 (989.6) 1. *Ghosts — direct spirit influences.* The earliest hypothesis advanced in explanation of disease and death was that spirits caused disease by enticing the soul out of the body; if it failed to return, death ensued. The ancients so feared the malevolent action of disease-producing ghosts that ailing individuals would often be deserted without even food or water. Regardless of the erroneous basis for these beliefs, they did effectively isolate afflicted individuals and prevent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

90:3.5 (989.7) 2. *Violence — obvious causes.* The causes for some accidents and deaths were so easy to identify that they were early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ghost action. Fatalities and wounds attendant upon war, animal combat, and other readily identifiable agencies were considered as natural occurrences. But it was long believed that the spirits were still responsible for delayed healing or for the infection of wounds of even “natural” causation. If no observable natural agent could be discovered, the spirit ghosts were still held responsible for disease and death.

90:3.6 (990.1) Today, in Africa and elsewhere may be found primitive peoples who kill someone every time a nonviolent death occurs. Their medicine men indicate the guilty parties. If a mother dies in childbirth, the child is immediately strangled — a life for a life.

3. 마법—적들에서의 영향. 대부분의 질병은 요술에 걸려서, 흉안(凶眼)과 마법적인 활쏘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금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질병이나 죽음이 발생된 경우에 고대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참관인을 배석시키고 시신을 해부하여 질병의 원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에 마술이 걸린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마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자리에 배석한 이러한 고대의 검시관들이, 죽게 된 마녀의 생명을 많이 살려주었다. 어떤 종족들 중에는 부족민이 자기 자신의 마술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4. 죄—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형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는 질병이 개인적인 또는 종족 전체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어져 왔다. 이러한 수준의 진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누군가가 금기를 범하지 않는 한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속에 계시는 전능자의 화살들”로 간주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그러한 신념들의 모습이다. 중국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 들은 질병을 악한 마귀가 활동한 결과로 간주한 반면, 갈대아인들은 별들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질병을 신성한 진노의 결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문명화 된 것으로 평판이 나 있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집단들 속에서 여전히 우세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5. 자연적 원인 작용. 인류는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물리적 권역 속에 있는 상호관계의 물질적인 비밀들을 깨우치기까지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아담아들의 가르침을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질병이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민족들 중의 하나였다. 과학적인 시대의 발견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케케묵은 견해들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열병은 초자연적인 부조화(不調和)의 범주에서 제외된 최초의 인간 질병들 중의 하나였으며, 인간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가두어 놓았던 무지의 족쇄를 과학시대가 점진적으로 파괴해 왔다. 노화 현상과 전염병에 대해 납득함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필자사의 고난을 주는 개인적인 가해자로 간주되는 귀신, 영, 그리고 하느님들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진화는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하느님 개념의 발판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심을 사람에게 불어넣는다. 그리고 신(神)에 대한 발전된 이해의 탄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진화 기법이, 계시의 조화-협동적인 활동을 통해, 앞으로 그 발판을 냉혹하게 제거시키게 될, 지금까지 그 목적을 위해 이바지 해왔던 그러한 사고력이 반드시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90:3.7 (990.2) 3. *Magic — the influence of enemies.* Much sickness was thought to be caused by bewitchment, the action of the evil eye and the magic pointing bow. At one time it was really dangerous to point a finger at anyone; it is still regarded as ill-mannered to point. In cases of obscure disease and death the ancients would hold a formal inquest, dissect the body, and settle upon some finding as the cause of death; otherwise the death would be laid to witchcraft, thus necessitating the execution of the witch responsible therefor. These ancient coroner's inquests saved many a supposed witch's life. Among some it was believed that a tribesman could die as a result of his own witchcraft, in which event no one was accused.

90:3.8 (990.3) 4. *Sin — punishment for taboo violation.* In comparatively recent times it has been believed that sickness is a punishment for sin, personal or racial. Among peoples traversing this level of evolution the prevailing theory is that one cannot be afflicted unless one has violated a taboo. To regard sickness and suffering as “arrows of the Almighty within them” is typical of such beliefs. The Chinese and Mesopotamians long regarded disease as the result of the action of evil demons, although the Chaldeans also looked upon the stars as the cause of suffering. This theory of disease as a consequence of divine wrath is still prevalent among many reputedly civilized groups of Urantians.

90:3.9 (990.4) 5. *Natural causation.* Mankind has been very slow to learn the material secrets of the inter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in the physical domains of energy, matter, and life. The ancient Greeks, having preserved the traditions of Adamson's teachings, were among the first to recognize that all disease is the result of natural causes. Slowly and certainly the unfolding of a scientific era is destroying man's age-old theories of sickness and death. Fever was one of the first human ailments to be removed from the category of supernatural disorders, and progressively the era of science has broken the fetters of ignorance which so long imprisoned the human mind. An understanding of old age and contagion is gradually obliterating man's fear of ghosts, spirits, and gods as the personal perpetrators of human misery and mortal suffering.

90:3.10 (990.5) Evolution unerringly achieves its end: It imbues man with that superstitious fear of the unknown and dread of the unseen which is the scaffolding for the God concept. And having witnessed the birth of an advanced comprehension of Deity, through the co-ordinate action of revelation, this same technique of evolution then unerringly sets in motion those forces of thought which will inexorably obliterate the scaffolding, which has served its purpose.

제 4 장 . 무당들이 장악한 약품

고대 사람들의 생애 전체가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 질병의 예방을 위한 기법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쏟아붓는 데에 전심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치료에서의 그들의 방법에 억제되지 않을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제였다.

이들 고대 무당들 가운데 어떤 자의 어리석은 사명활동 아래에서 낫기 위하여 요구되었던 신앙은,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비과학적 치료에 종사하는, 그의 후대 계승자들 중의 어떤 자의 손에서 치유를 체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것과,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더욱 원시적인 부족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조심스러운 면으로 보면 그 환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어 왔고, 어리석게 본다면 경시되었다. 무술(巫術)의 진화로 말미암아, 질병 치료에 동요한 사제들과 주술사들이 탄생되었을 때, 인도주의적으로는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질병을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당이 소리치는 일을 도와주려고 환자의 방에 전체 씨족들이 모여드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자가 병을 진단하는 무당이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반면에 남자가 관리-운행을 담당하였다. 질병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물의 내장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질병의 치료에는 노래 부르기, 소리치기, 손을 얹기, 환자에게 숨을 내뿜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동안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어, 신전에서 잠을 자는 휴식이 널리 확산 되었다. 주술사들은 신전에서의 수면과 관련하여 결국에는 실제적인 외과 수술을 피했다; 처음에 했던 수술 중에는, 두통 영이 달아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두개골에 천공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 남자 무당들은 중기와 농양의 환부를 절개하여 치료하는 방법과, 골절상과 좌상을 치료하는 것을 배웠다; 여자 무당들은 산파술에 정통하게 되었다.

병균이 들어가거나 손상을 입은 신체 부위에 마술적인 어떤 것을 문지르고, 부적을 멀리 던지며, 체험적으로 치료법이라 간주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만약에 누구든지 버려진 부적을 우연히 만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즉시로 병균이 들어가거나 손상을 입게 된다고 믿었다. 약초 또는 다른 실제적인 약품들이 소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안마하는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관련하여 개발되었는데 문지르는 방법으로 영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이었고, 그 전에는 현대인들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약품을 문질러서 침투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병에 걸린 부위에서 피를 짜거나 빨아들이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

4. MEDICINE UNDER THE SHAMANS

90:4.1 (990.6) The entire life of ancient men was prophylactic; their religion was in no small measure a technique for disease prevention. And regardless of the error in their theories, they were wholehearted in putting them into effect; they had unbounded faith in their methods of treatment, and that, in itself, is a powerful remedy.

90:4.2 (991.1) The faith required to get well under the foolish ministrations of one of these ancient shamans was, after all, not materially different from that which is required to experience healing at the hands of some of his later-day successors who engage in the nonscientific treatment of disease.

90:4.3 (991.2) The more primitive tribes greatly feared the sick, and for long ages they were carefully avoided, shamefully neglected. It was a great advance in humanitarianism when the evolution of shamancraft produced priests and medicine men who consented to treat disease. Then it became customary for the entire clan to crowd into the sickroom to assist the shaman in howling the disease ghosts away. It was not uncommon for a woman to be the diagnosing shaman, while a man would administer treatment. The usual method of diagnosing disease was to examine the entrails of an animal.

90:4.4 (991.3) Disease was treated by chanting, howling, laying on of hands, breathing on the patient, and many other techniques. In later times the resort to temple sleep, during which healing supposedly took place, became widespread. The medicine men eventually essayed actual surgery in connection with temple slumber; among the first operations was that of trephining the skull to allow a headache spirit to escape. The shamans learned to treat fractures and dislocations, to open boils and abscesses; the shamanesses became adept at midwifery.

90:4.5 (991.4) It was a common method of treatment to rub something magical on an infected or blemished spot on the body, throw the charm away, and supposedly experience a cure. If anyone should chance to pick up the discarded charm, it was believed he would immediately acquire the infection or blemish. It was a long time before herbs and other real medicines were introduced. Massage wa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incantation, rubbing the spirit out of the body, and was preceded by efforts to rub medicine in, even as moderns attempt to rub liniments in. Cupping and sucking the affected parts, together with bloodletting, were thought to be of value in

법과 함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영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은 강력한 주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치료제로 이용되었다. 영에 의해 발생된 병은 고문하는 방법으로 낮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증기를 쥘 때는 목욕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천연적인 온천이 곧 원시적인 건강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열에 의해서 통증이 경감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햇빛, 싱싱한 동물 내장, 뜨겁게 달군 진흙, 그리고 뜨거운 돌맹이들이 이용되었고,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 영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울동이 실천되었다; 단조로운 북소리는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어떤 민족은 영들과 동물들의 중간인 사악한 음모자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는 효험이 있는 식물 치료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적색 인종들은 만병통치약에 해당하는 식물 요법을 특별히 신봉하였다; 그 식물을 뽑을 때에는 뿌리가 있었던 남겨진 구멍에 피 한 방울을 항상 떨어뜨렸다.

금식과 식이요법 그리고 반대되는 자극제들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확실히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분비물들이 매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처음에는 피와 오줌이 약품으로 활용되었고 뿌리들과 여러 가지 소금들로 곧 증강되었다. 무당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이 불결한 냄새와 고약한 맛의 약품에 의해서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믿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매우 일찍부터 틀에 박힌 치료법이 되었으며, 야생 코코아와 키니네의 가치는 약학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에 속하였다.

그리스인들은 병을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들을 진화시킨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은 모두 유프라테스 계곡 사람들로 부터 의학 지식을 받아들였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매우 초기의 약품이었다; 비버 기름과 아편은 수메르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대의 효력 있는 은밀한 치료제들 대부분은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 힘을 잃어버렸는데; 은밀함은 미신과 기만행위가 효과적으로 실천되는 데 있어서 항상 근본적인 요소가 되어 왔다. 오직 사실들과 진리만이 이해에서의 충만한 빛을 만나 사귀고, 과학적 연구에서의 조명과 깨우침 안에서 기쁨을 향유한다.

제 5 장. 사제(司祭)와 종교예식

종교 예식의 정수(精髓)는 그것을 이상적(理想的)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미개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 의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그것이 영들에게 강제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만약에 그 의식에 잘못이 있게 되면, 하느님들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다. 그 결과로, 사

getting rid of a disease-producing spirit.

90:4.6 (991.5) Since water was a potent fetish, it was utilized in the treatment of many ailments. For long it was believed that the spirit causing the sickness could be eliminated by sweating. Vapor baths were highly regarded; natural hot springs soon blossomed as primitive health resorts. Early man discovered that heat would relieve pain; he used sunlight, fresh animal organs, hot clay, and hot stones, and many of these methods are still employed. Rhythm was practiced in an effort to influence the spirits; the tom-toms were universal.

90:4.7 (991.6) Among some people disease was thought to be caused by a wicked conspiracy between spirits and animals. This gave rise to the belief that there existed a beneficent plant remedy for every animal-caused disease. The red men were especially devoted to the plant theory of universal remedies; they always put a drop of blood in the root hole left when the plant was pulled up.

90:4.8 (991.7) Fasting, dieting, and counterirritants were often used as remedial measures. Human secretions, being definitely magical, were highly regarded; blood and urine were thus among the earliest medicines and were soon augmented by roots and various salts. The shamans believed that disease spirits could be driven out of the body by foul-smelling and bad-tasting medicines. Purging very early became a routine treatment, and the values of raw cocoa and quinine were among the earliest pharmaceutical discoveries.

90:4.9 (992.1) The Greeks were the first to evolve truly rational methods of treating the sick. Both the Greeks and the Egyptians received their medical knowledge from the Euphrates valley. Oil and wine was a very early medicine for treating wounds; castor oil and opium were used by the Sumerians. Many of these ancient and effective secret remedies lost their power when they became known; secrecy has always been essential to the successful practice of fraud and superstition. Only facts and truth court the full light of comprehension and rejoice in the illumination and enlightenment of scientific research.

5. PRIESTS AND RITUALS

90:5.1 (992.2) The essence of the ritual is the perfection of its performance; among savages it must be practiced with exact precision. It is only when the ritual has been correctly carried out that the ceremony possesses compelling power over the spirits. If the ritual is faulty, it only arouses the anger and resentment of the gods. Therefore,

람의 더디게 진화하는 마음은, 의식을 치루는 기법이 효력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무당들이 조만간 의식에서의 빈틈없는 실천을 지도하도록 훈련된 사제(司祭)신분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만 년 동안 끊임없는 종교 예식들이 공동체를 해방하고 문명의 발전에 화를 미쳤는데,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 인종적인 모든 일들 위에 건디기 힘든 짐을 부과해 왔다.

종교예식은 신성하게 하는 관습의 기법이었다; 신화들을 만들고 영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들과 종교적인 관습들의 보존에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예식 그 자체는 신화들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종교예식들은 처음에는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되었고 마침내는 종교적 예식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종교예식은 기도와 춤과 연극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그 실천에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또는 그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종교예식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아멘과 셀라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맹세하는 습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그 전에 거룩한 이름들을 예식으로 반복하던 행위가 타락된 대표적인 것이었다. 거룩한 성지를 순례 여행하는 행위는 매우 오래된 종교예식이다. 그 다음에는 종교예식이 정화와 깨끗이 씻음과 성화(聖化)라는 정교한 예식들로 발전하였다. 원시적인 부족의 비밀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은 실제 안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였다. 옛시대의 신비적인 예배종파들의 경배 방법은 축적된 여러 가지 종교예식들을 길게 이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종교예식은 결국 현대적 유형의 공동체적 예식과 종교적 경배, 기도가 포함된 예배봉사, 노래, 교독(交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영적 헌신 행위들로 발전하였다.

사제 계급은 무당으로부터 진화하여, 예언자, 점쟁이, 가수, 무인(舞者), 날씨를 만드는 자, 종교적인 유품들을 지키는 자, 신전 보호관리자, 그리고 사건들을 미리 예견하는 자의 단계들을 거쳐, 종교적인 경배를 실제로 인도하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직책은 결국에는 세습적인 것이 되었고; 계속 이어지는 사제 특권계급이 탄생되었다.

종교가 진화됨에 따라, 사제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들 또는 특별히 선호하는 것에 맞추어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웅변가—설교가—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가 제도화되자, 이 사제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제들은 옛날 언어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마술적인 잡다한 골동품들을 이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놀라게 함으로써 경배자들을 미혹하여 자기 자신의 경건성과 권위를 증진시키려고 항상 애를 썼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은, 그 종교예식이 중

since man's slowly evolving mind conceived that the *technique of ritual* was the decisive factor in its efficacy, it was inevitable that the early shamans should sooner or later evolve into a priesthood trained to direct the meticulous practice of the ritual. And so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endless rituals have hampered society and cursed civilization, have been an intolerable burden to every act of life, every racial undertaking.

90:5.2 (992.3) Ritual is the technique of sanctifying custom; ritual creates and perpetuates myth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social and religious customs. Again, ritual itself has been fathered by myths. Rituals are often at first social, later becoming economic and finally acquiring the sanctity and dignity of religious ceremonial. Ritual may be personal or group in practice — or both — as illustrated by prayer, dancing, and drama.

90:5.3 (992.4) Words become a part of ritual, such as the use of terms like amen and selah. The habit of swearing, profanity, represents a prostitution of former ritualistic repetition of holy names. The making of pilgrimages to sacred shrines is a very ancient ritual. The ritual next grew into elaborate ceremonies of purification, cleansing, and sanctification. The initiation ceremonies of the primitive tribal secret societies were in reality a crude religious rite. The worship technique of the olden mystery cults was just one long performance of accumulated religious ritual. Ritual finally developed into the modern types of social ceremonials and religious worship, services embracing prayer, song, responsive reading, and other individual and group spiritual devotions.

90:5.4 (992.5) The priests evolved from shamans up through oracles, diviners, singers, dancers, weathermakers, guardians of religious relics, temple custodians, and foretellers of events, to the status of actual directors of religious worship. Eventually the office became hereditary; a continuous priestly caste arose.

90:5.5 (992.6) As religion evolved, priests began to specialize according to their innate talents or special predilections. Some became singers, others prayers, and still others sacrificers; later came the orators — preachers. And when religion became institutionalized, these priests claimed to “hold the keys of heaven.”

90:5.6 (992.7) The priests have always sought to impress and awe the common people by conducting the religious ritual in an ancient tongue and by sundry magical passes so to mystify the worshipers as to enhance their own piety and authority. The great danger in all this is that the ritual tends to become a substitute for religion.

교를 대신하게 되려는 경향이다.

과학적인 발전을 지체시키고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제 계급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문명을 안정화시키고 특정한 종류의 문화들을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배 예식에서의 지도자 기능을 그만두었고, 관심을 신학—하느님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려는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

사제들이 여러 인종들의 목에 맷돌을 매달아 온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참된 종교적 영도자들은 보다 높고 향상된 실체들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데에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가 되어 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90:5.7 (993.1) The priesthoods have done much to delay scientific development and to hinder spiritual progress, but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civilization and to the enhancement of certain kinds of culture. But many modern priests have ceased to function as directors of the ritual of the worship of God, having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ology — the attempt to define God.

90:5.8 (993.2) It is not denied that the priests have been a millstone about the neck of the races, but the true religious leaders have been invaluable in pointing the way to higher and better realities.

90:5.9 (993.3)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1 편 기도의 진화

⇨ 090

유랜시아 책

092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1 편 기도의 진화

섹션

소개

제 1 장. 원시적인 기도

제 2 장. 진화하는 기도

제 3 장. 기도와 타아인 자기

제 4 장. 윤리적인 기도

제 5 장. 기도의 사회적 반향

제 6 장. 기도의 범위

제 7 장. 신비주의, 황홀경 그리고 영감(靈感)

제 8 장.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제 9 장.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소개

종교에서의 하나의 매개자로서, 기도(祈禱)는, 그 전에 있었던 비종교적인 독백(獨白)과 대화의 표현들로부터 진화되었다. 원시인이 자아-의식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다른-의식, 사회적인 반응과 하느님 인식(認識)의 이원적(二元的)인 잠재가 발생되었다.

최초의 기도 형태들은 신(神)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너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의 성공을 빌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였다. 원시인은 마술에 노예가 된 상태였으며; 행운과 불운은 삶에 있어서 모든 관련사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운의 요청이 독백 형식으로 —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 행해졌다. 그 다음에는, 행운을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윽고 전체 씨족 또는 부족을 참여시키는 어떤 형태의 예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귀신들과 영들에 대한 개념들이 발전하게 되자, 이러한 청원들은 그 요청에 있어서 초인간적

PAPER 91

THE EVOLUTION OF PRAYER

SECTIONS

Introduction

1. Primitive Prayer

2. Evolving Prayer

3. Prayer and the Alter Ego

4. Ethical Praying

5. Social Repercussions of Prayer

6. The Province of Prayer

7.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8. Praying as a Personal Experience

9. Conditions of Effective Prayer

INTRODUCTION

91:0.1 (994.1) PRAYER, as an agency of religion, evolved from previous nonreligious monologue and dialogue expressions. With the attainment of self-consciousness by primitive man there occurred the inevitable corollary of other-consciousness, the dual potential of social response and God recognition.

91:0.2 (994.2) The earliest prayer forms were not addressed to Deity. These expressions were much like what you would say to a friend as you entered upon some important undertaking, “Wish me luck.” Primitive man was enslaved to magic; luck, good and bad, entered into all the affairs of life. At first, these luck petitions were monologues — just a kind of thinking out loud by the magic server. Next, these believers in luck would enlist the support of their friends and families, and presently some form of ceremony would be performed which included the whole clan or tribe.

91:0.3 (994.3) When the concepts of ghosts and spirits evolved, these petitions became

인 것이 되었으며, 하느님들에 대한 의식(意識)과 함께, 그러한 표현들은 참된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한 예로,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원시적 종교 형태의 기도가 영들과 초인간적 개인성들에 대한 믿음보다도 먼저 생겼다.

인도에 있는 토다 부족은 특별한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실천 관행이 지금도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意識)이 생기기 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오직, 토다 부족 사이의 경우에서 만큼은, 이것이 그들의 퇴보하는 종교가 이러한 원시적인 차원으로의 역행(逆行)을 보여준다. 토다 부족 중에서 낙농업(酪農業)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지금-현재의 의식(儀式) 행사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 미(未)개인적인 기도들이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 또는 영적 가치의 보존 또는 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형성되기 이전의 기도는, 멜라네시아인들의 마나 실천 관행, 아프리카 피그미 종족의 우다 신앙 그리고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마니토우 미신의 일부였다. 아프리카의 바간다 부족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기도에서의 마나 차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초기 진화의 혼란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하느님들 — 지역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 에게, 주물들, 부적(符籙)들, 귀신들, 통치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제 1 장. 원시적인 기도

초기의 진화적 종교의 기능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종교의 이러한 임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의식적(意識的)으로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기도의 역할에 의해서 달성되었다. 보다 높은 가치들의 이러한 보존을 확실하게 하려는 (실재화하려는) 모든 집단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실천 관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기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거룩한 날들은 단순한 휴일의 지위로 재빨리 전환되었다.

그 주요 부분이 기도인 종교 그리고 그 매개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집단적인 동의를 얻은 그러한 가치들과만 결합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이 보다 낮은 차원의 자기 감정들을 만족시키거나 순전히 이기적인 야망을 달성하려고 시도할 때, 그는 종교의 위로와 기도의 협력을 잃어버린다. 만약에 그 개인이 반(反) 사회적인 어떤 것을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비종교적인 마술의 협력을 추구하고 요술쟁이들에게 의지하고 그리하여 기도의 도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옛날부터 사회적인 진화와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달성을 강력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원시적인 마음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다. 옛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

superhuman in address, and with the consciousness of gods, such expressions attained to the levels of genuine prayer. As an illustration of this, among certain Australian tribes primitive religious prayers antedated their belief in spirits and superhuman personalities.

91:0.4 (994.4) The Toda tribe of India now observes this practice of praying to no one in particular, just as did the early peoples before the times of religious consciousness. Only, among the Todas, this represents a regression of their degenerating religion to this primitive level. The present-day rituals of the dairymen priests of the Todas do not represent a religious ceremony since these impersonal prayers do not contribute anything to the conservation or enhancement of any social, moral, or spiritual values.

91:0.5 (994.5) Prereligious praying was part of the mana practices of the Melanesians, the oudah beliefs of the African Pygmies, and the manitou superstitions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The Baganda tribes of Africa have only recently emerged from the mana level of prayer. In this early evolutionary confusion men pray to gods — local and national — to fetishes, amulets, ghosts, rulers, and to ordinary people.

1. PRIMITIVE PRAYER

91:1.1 (994.6) The function of early evolutionary religion is to conserve and augment the essenti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values which are slowly taking form. This mission of religion is not consciously observed by mankind, but it is chiefly effected by the function of prayer. The practice of prayer represents the unintended, but nonetheless personal and collective, effort of any group to secure (to actualize) this conservation of higher values. But for the safeguarding of prayer, all holy days would speedily revert to the status of mere holidays.

91:1.2 (995.1) Religion and its agencies, the chief of which is prayer, are allied only with those values which have general social recognition, group approval. Therefore, when primitive man attempted to gratify his baser emotions or to achieve unmitigated selfish ambitions, he was deprived of the consolation of religion and the assistance of prayer. If the individual sought to accomplish anything antisocial, he was obliged to seek the aid of nonreligious magic, resort to sorcerers, and thus be deprived of the assistance of prayer. Prayer, therefore, very early became a mighty promoter of social evolution, mor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91:1.3 (995.2) But the primitive mind was neither logical nor consistent. Early men did not perceive

이 기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음식과 주거지와 비와 오락 그리고 다른 물질들이 사회적인 행복을 증진시켜준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기도를 오용(誤用)하는 요인이 되었던 반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활동들에 의해서 이러한 물질적 목표들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였다. 기도의 그러한 타락은, 사람의 영적인 가치들을 저하시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관습들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켰다.

원시적인 유형의 마음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는 독백(獨白)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대화 형체가 되었고 집단적인 경배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기도는, 마술(魔術) 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종교의 주문(呪文)이 진화하여, 인간 마음이 사회적인 가치들을 증진시키고 도덕적 이상(理想)들을 증강시킬 수 있는 인정 많은 힘들 또는 존재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예시(豫示)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영향들이 초인간적이라는 사실과 자아-의식적 인간과 그의 동료 필사자들의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사명활동 매개자가 개인적인 것으로 가시화(可視化)되기 전에는 참된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는 정령(精靈) 숭배와 거의 연관이 없지만, 그러한 신념들은 창발하는 종교적 정서들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다. 종교와 정령 숭배가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원시적인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필사자들에게는, 모든 기도가 죄에 대한 병적(病的)인 감각, 실제적이든지 공상에 의한 것이든지, 죄책감에 대한 근거 없는 신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의식에 대하여 위험할 정도로 낙심하게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기도에 바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도에서의 왜곡과 오용에 수반되는 위험들은 무지, 미신, 결정화, 생명력 상실, 물질주의, 그리고 열광주의 속에 존재하고 있다.

제 2 장. 진화하는 기도

처음에 하였던 기도들은 소원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한 것, 진지한 욕망들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인 협동을 달성하는 기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모든 보람있는 가치들의 보존에 있어서 조력(助力)하는 종교의 보다 높은 기능을 달성하였다.

기도와 마술 두 가지는 모두 유란시아의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의 반응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관계를 제외한다면, 공통점이 거의 없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기에 의한 긍정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그것은 항상 정신

that material things were not the province of prayer. These simple-minded souls reasoned that food, shelter, rain, game, and other material goods enhanced th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y began to pray for these physical blessings. While this constituted a perversion of prayer, it encouraged the effort to realize these material objectives by social and ethical actions. Such a prostitution of prayer, while debasing the spiritual values of a people, nevertheless directly elevated their economic, social, and ethical mores.

91:1.4 (995.3) Prayer is only monologuous in the most primitive type of mind. It early becomes a dialogue and rapidly expands to the level of group worship. Prayer signifies that the premagical incantations of primitive religion have evolved to that level where the human mind recognizes the reality of beneficent powers or beings who are able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to augment moral ideals, and further, that these influences are superhuman and distinct from the ego of the self-conscious human and his fellow mortals. True prayer does not, therefore, appear until the agency of religious ministry is visualized as *personal*.

91:1.5 (995.4) Prayer is little associated with animism, but such beliefs may exist alongside emerging religious sentiments. Many times, religion and animism have had entirely separate origins.

91:1.6 (995.5) With those mortals who have not been delivered from the primitive bondage of fear, there is a real danger that all prayer may lead to a morbid sense of sin, unjustified convictions of guilt, real or fancied. But in modern times it is not likely that many will spend sufficient time at prayer to lead to this harmful brooding over their unworthiness or sinfulness. The dangers attendant upon th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prayer consist in ignorance, superstition, crystallization, devitalization, materialism, and fanaticism.

2. EVOLVING PRAYER

91:2.1 (995.6) The first prayers were merely verbalized wishes, the expression of sincere desires. Prayer next became a technique of achieving spirit co-operation. And then it attained to the higher function of assisting religion in the conservation of all worth-while values.

91:2.2 (995.7) Both prayer and magic arose as a result of man's adjustive reactions to Urantian environment. But aside from this generalized relationship, they have little in common. Prayer has always indicated positive action by the praying

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이기도 하다. 마술은 대개 조종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자기와 상관 없이 실체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것들의 독립적인 기원(起源)에도 불구하고, 마술과 기도는 후대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술은 습관적인 방식으로부터 의식(儀式)과 주문(呪文)의 단계를 거쳐 참된 기도의 입구까지 이르는 목표 향상에 의해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이 되어, 유란시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이비 마술 기법으로 타락하였다.

기도가 하느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그것은 좀 더 탄원적(數願的)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실체 안에서 가장 참된 기도는 사람과 그의 조물주 사이의 교제이다.

어떤 종교의 경우든지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개념의 출현은 참된 기도의 더욱 높은 효능보다 훨씬 못한 것이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신들의 헌신된 의지들을 제공하는 대신에 물질적인 소유물들을 제공하려고 한다.

종교가 개인적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기도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전환된다. 종교에서 하느님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이 범신적 이상주의와 같이 미(未)개인적 신(神)의 개념일 때에는, 특정 형태의 신비적 교제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개인적인 그리고 우월한 존재와 사람의 교제를 드러내는, 참된 기도의 잠재력에 치명적임에 틀림없다.

인종 진화의 초기 시대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보통 수준의 필사자가 겪는 매일 매일의 체험 속에서, 기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과의 교제 현상인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기도에서 지적으로 경각심을 깨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개별존체가 달성하는 인간 마음의 초(超)의식적 차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권역과 다소간 접촉하는, 그러한 기도의 권역도 또한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우주의 영적 기세들에 의한 수신과 그리고 인지에 관계되는, 참된 기도의 영적 위상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인간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관계적-연합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기도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의 종교적인 정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것은 개인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큰 영향을 준다.

기도는, 인종적 진화에서의 자연 종교들과 연관되는 하나의 기법을 대표하며, 그것은 또한 계시의 종교, 곧 윤리적 탁월성을 지닌 더욱 높은 종교에서의 체험적 가치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다.

ego; it has been always psychic and sometimes spiritual. Magic has usually signified an attempt to manipulate reality without affecting the ego of the manipulator, the practitioner of magic. Despite their independent origins, magic and prayer often have been interrelated in their later stages of development. Magic has sometimes ascended by goal elevation from formulas through rituals and incantations to the threshold of true prayer. Prayer has sometimes become so materialistic that it has degenerated into a pseudomagical technique of avoiding the expenditure of that effort which is requisite for the solution of Urantian problems.

91:2.3 (996.1) When man learned that prayer could not coerce the gods, then it became more of a petition, favor seeking. But the truest prayer is in reality a communion between man and his Maker.

91:2.4 (996.2) The appearance of the sacrifice idea in any religion unfailingly detracts from the higher efficacy of true prayer in that men seek to substitute the offerings of material possessions for the offering of their own consecrated wills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91:2.5 (996.3) When religion is divested of a personal God, its prayers translate to the levels of theology and philosophy. When the highest God concept of a religion is that of an impersonal Deity, such as in pantheistic idealism, although affording the basis for certain forms of mystic communion, it proves fatal to the potency of true prayer, which always stands for man's communion with a personal and superior being.

91:2.6 (996.4) During the earlier times of racial evolution and even at the present time, in the day-by-day experience of the average mortal, prayer is very much a phenomenon of man's intercourse with his own subconscious. But there is also a domain of prayer wherein the intellectually alert and spiritually progressing individual attains more or less contact with the superconscious levels of the human mind, the domain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n addition, there is a definite spiritual phase of true prayer which concerns its reception and recognition by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and which is entirely distinct from all human and intellectual association.

91:2.7 (996.5) Prayer contributes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sentiment of an evolving human mind. It is a mighty influence working to prevent isolation of personality.

91:2.8 (996.6) Prayer represents one technique associated with the natural religions of racial evolution which also forms a part of the experiential values of the higher religions of ethical excellence, the religions of revelation.

제 3 장. 기도와 타아인 자기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아니할지라도 생각을 소리치려는 경향,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기면서 그들은 가상(假想)의 동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방법으로 싹트는 자기는 가상의 타아인 자기와 교제하려고 추구한다. 아이는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자신의 독백하는 회화를 가상의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 타아인 자기는 말로 하는 그의 생각과 소원 표현에 응답한다. 어른의 사고에서의 아주 많은 것이 정신적으로는 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초기의 원시 형태의 기도는 지금-현재 토다 부족의 반(半) 마술적인 암송(暗誦)과 매우 흡사하며,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그러한 기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기법들은 타아인 자기에 대한 관념이 창발됨으로써 대화하는 유형의 교통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되면, 타아인 자기 개념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우월한 지위로 고취되고, 그리고 종교에서의 매개자로서 기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 유형의 기도는 지능의 차원과 그리고 참으로 윤리적인 기도의 차원을 달성하기 전에, 여러 위상을 거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도하는 필사자들의 이어지는 세대에 의해 인식되는 것처럼, 타아인 자기는 귀신들과 주물(呪物)들 그리고 영들의 단계를 거쳐 다신론적(多神論的) 하느님들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결국에는 유일하신 하느님, 가장 높은 이상(理想)들과 기도하는 자기의 가장 고귀한 소망을 체현하는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그렇게 하여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들과 이상들을 보존함에 있어서 종교의 가장 강력한 매개자로 기능한다. 타아인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께 대한 개념이 출현될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사회화시키고 교화하고 영성화시키는 실천이다.

신앙으로 하는 단순한 기도는 인간 체험에서 강력한 진화를 입증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시적인 종교의 타아인 자기에 대한 허구적인 상징물과의 먼 옛날의 대화는, 무한자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차원으로 그리고 모든 지적인 창조의 주인이신 영원한 하느님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실체에 대하여 진정으로 의식하는 차원으로 고양되게 되었다.

기도하는 체험 속에서의 초(超)자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윤리적인 기도가 나은 삶과 보다 높은 달성을 위하여 한 사람의 자기를 증진시키고 자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기도는 인간적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모두의 길을 볼 수 있게 유도한다: 그것은 필사자 체험의 잠재의식 저장소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와,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신비 감시자와 접촉하는, 초(超)의식적 경계에 이

3. PRAYER AND THE ALTER EGO

91:3.1 (996.7) Children, when first learning to make use of language, are prone to think out loud, to express their thoughts in words, even if no one is present to hear them. With the dawn of creative imagination they evince a tendency to converse with imaginary companions. In this way a budding ego seeks to hold communion with a fictitious alter ego. By this technique the child early learns to convert his monologue conversations into pseudo dialogues in which this alter ego makes replies to his verbal thinking and wish expression. Very much of an adult's thinking is mentally carried on in conversational form.

91:3.2 (996.8) The early and primitive form of prayer was much like the semimagical recitations of the present-day Toda tribe, prayers that were not addressed to anyone in particular. But such techniques of praying tend to evolve into the dialogue type of communication by the emergence of the idea of an alter ego. In time the alter-ego concept is exalted to a superior status of divine dignity, and prayer as an agency of religion has appeared. Through many phases and during long ages this primitive type of praying is destined to evolve before attaining the level of intelligent and truly ethical prayer.

91:3.3 (997.1) As it is conceived by successive generations of praying mortals, the alter ego evolves up through ghosts, fetishes, and spirits to polytheistic gods, and eventually to the One God, a divine being embodying the highest ideals and the loftiest aspirations of the praying ego. And thus does prayer function as the most potent agency of religion in the conservation of the highest values and ideals of those who pray. From the moment of the conceiving of an alter ego to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a divine and heavenly Father, prayer is always a socializing, moralizing, and spiritualizing practice.

91:3.4 (997.2) The simple prayer of faith evidences a mighty evolution in human experience whereby the ancient conversations with the fictitious symbol of the alter ego of primitive religion have become exalted to the level of communion with the spirit of the Infinite and to that of a bona fide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of the eternal God and Paradise Father of all intelligent creation.

91:3.5 (997.3) Aside from all that is superself in the experience of praying,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ethical prayer is a splendid way to elevate one's ego and reinforce the self for better living and higher attainment. Prayer induces the human ego to look both ways for help: for material aid to the subconscious reservoir of mortal experience, for inspiration and guidance to the superconscious borders of the contact of the material with the

르는 영감과 안내이다.

기도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중적인 인간 체험인데: 영적인 기법과 상호-연관된 심리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두 가지 기능들은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깨우친 기도는 반드시 외부에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하느님을 인식해야만 할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고 그리고 미(未)개인적인 신성, 내주하는 조절자도 인식해야만 한다. 사람이, 기도할 때, 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실천적인 목적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법은 바로 원시적 마음이 습관처럼 행해왔던 것과 똑 같이, 바로 옆에 있는 타아인 자기의 개념으로 되돌아가 보는 것이며, 그리고는 이 타아인 자기의 관념이 단순한 상상에서부터 조절자의 사실적 현존으로서 필사자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하느님의 진리까지 진화해 온 것, 그리하여 사람이,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있는 하느님, 우주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이자 본질인 그리고 자신에게 내주하고 있는, 실재이자 진정이며 그리고 신성한 타아인 자기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제 4 장. 윤리적인 기도

청원하는 자가 자기 동료들보다 유리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기도도 윤리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는, 자심-없고 신성한 사랑에 입각한 윤리적 종교들과 모순된다. 그러한 비윤리적인 모든 기도는 가짜 마술의 원시적인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문명들과 깨우친 종교들에 적합하지 않다. 이기적인 기도는 충실한 공의(公義) 위에 세워진 모든 윤리들의 마음에 위배된다.

기도가 행동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윤리적 기도는 행동을 이끄는 자극제이며, 초자아-달성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진취적으로 투쟁하게 이끄는 안내자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공정 하라; 하느님께서 자신의 다른 자녀들, 네 형제들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적들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는 편애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자연적이고 진화 종교들의 기도는, 후대의 계시된 종교에서의 기도와는 달리, 처음에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기도는, 개별적으로 하던지 공동으로 하던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이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둘 수 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들은 참된 경배의 차원으로 향하게 된다. 이 기주의적인 기도들은 고백들과 청원들을 포함하며 물질적인 은혜에 대한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도는 그것이 용서를 취급할 때

spiritual, with the Mystery Monitor.

91:3.6 (997.4) Prayer ever has been and ever will be a twofold human experience: a psychologic procedure interassociated with a spiritual technique. And these two functions of prayer can never be fully separated.

91:3.7 (997.5) Enlightened prayer must recognize not only an external and personal God but also an internal and impersonal Divinity, the indwelling Adjuster. It is altogether fitting that man, when he prays, should strive to grasp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but the more effective technique for most practical purposes will be to revert to the concept of a near-by alter ego, just as the primitive mind was wont to do, and then to recognize that the idea of this alter ego has evolved from a mere fiction to the truth of God's indwelling mortal man in the factual presence of the Adjuster so that man can talk face to face, as it were, with a real and genuine and divine alter ego that indwells him and is the very presence and essence of the living God, the Universal Father.

4. ETHICAL PRAYING

91:4.1 (997.6) No prayer can be ethical when the petitioner seeks for selfish advantage over his fellows. Selfish and materialistic praying is incompatible with the ethical religions which are predicated on unselfish and divine love. All such unethical praying reverts to the primitive levels of pseudo magic and is unworthy of advancing civilizations and enlightened religions. Selfish praying transgresses the spirit of all ethics founded on loving justice.

91:4.2 (997.7) Prayer must never be so prostituted as to become a substitute for action. All ethical prayer is a stimulus to action and a guide to the progressive striving for idealistic goals of superself-attainment.

91:4.3 (998.1) In all your praying be fair; do not expect God to show partiality, to love you more than his other children, your friends, neighbors, even enemies. But the prayer of the natural or evolved religions is not at first ethical, as it is in the later revealed religions. All praying, whether individual or communal, may be either egoistic or altruistic. That is, the prayer may be centered upon the self or upon others. When the prayer seeks nothing for the one who prays nor anything for his fellows, then such attitudes of the soul tend to the levels of true worship. Egoistic prayers involve confessions and petitions and often consist in requests for material favors. Prayer is somewhat more ethical when it deals with forgiveness and seeks wisdom for enhanced self-control.

그리고 증진된 자아-통제를 위해 지혜를 추구할 때 약간 더 윤리적이다.

비(非)이기적인 유형의 기도가 강하게 하고 위안을 주는 반면, 향상되는 과학적 발견이 법칙과 질서의 물리적 우주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게 됨에 따라 물질주의적인 기도는 실망과 환멸을 주게 되어 있다. 한 개별존재의 또는 한 종족의 유년기는 원시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청원들은 특정한 범위에 대하여, 효과를 나타내어, 그들이 그러한 기도들의 응답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노력과 고된 행사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다. 신앙에서의 실제적인 기도는, 비록 그러한 청원들이 영적인 인정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삶의 기법을 증강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향상된 사람은 그러한 기도들에 관한 원시적이거나 또는 미숙한 마음을 단념하도록 시도하는 데에 서 큰 조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기도가 하느님을 변하게 하지는 않지만, 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거대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종종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도는 진화하는 종족들의 남녀 사람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 쾌활함, 침착, 용기, 자아-정복, 그리고 공정한-마음가짐의 선조가 되어왔다.

제 5 장. 기도의 사회적 반향

기도가, 조상에 대한 경배에서는 조상의 이상(理想)들을 육성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신(神) 경배의 모습으로서의 기도는 그렇게 다른 모든 실천 관행들을 초월하는데, 이는 그것이 신성한 이상들을 육성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에서의 또 하나의 자기에 대한 개념이 최극이 되고 그리고 신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의 이상도 따라서 인간에 불과한 것에서 숭고하고 신성한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며, 그러한 모든 기도에서의 결과는 인간 성격의 강화와 그리고 인간 개인성의 심오한 통일이 된다.

그러나 기도가 항상 개별적인 것은 아니다. 집단이나 집회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 반향이 높이 사회화(社會化)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 하나의 집단이 도덕적 강화와 영적 고양을 위하여 공동체 기도에 참여할 때, 그러한 헌신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존재들에게 반응을 일으킨다; 참여 자체로 인하여, 그들은 모든 것이 더욱 좋아진다. 심지어 도시 전체 또는 한 나라 전체가 그러한 기도예의 헌신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백과 회개와 기도는 개별존재들, 도시들, 나라들 그리고 온 민족들을 힘찬 개혁의 노력으로 그리고 과감한 성취를 향한 용기있는 행위로 이끌어왔다..

만일 너희가 어떤 친구를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하기를 참으로 갈망한다면,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91:4.4 (998.2) While the nonselfish type of prayer is strengthening and comforting, materialistic praying is destined to bring disappointment and disillusionment as advancing scientific discoveries demonstrate that man lives in a physical universe of law and order. The childhood of an individual or a race is characterized by primitive, selfish, and materialistic praying. And, to a certain extent, all such petitions are efficacious in that they unvaryingly lead to those efforts and exertions which are contributory to achieving the answers to such prayers. The real prayer of faith always contributes to the augmentation of the technique of living, even if such petitions are not worthy of spiritual recognition. But the spiritually advanced person should exercise great caution in attempting to discourage the primitive or immature mind regarding such prayers.

91:4.5 (998.3) Remember, even if prayer does not change God, it very often effects great and lasting changes in the one who prays in faith and confident expectation. Prayer has been the ancestor of much peace of mind, cheerfulness, calmness, courage, self-mastery, and fair-mindedness in the men and women of the evolving races.

5. SOCIAL REPERCUSSIONS OF PRAYER

91:5.1 (998.4) In ancestor worship, prayer leads to the cultivation of ancestral ideals. But prayer, as a feature of Deity worship, transcends all other such practices since it leads to the cultivation of divine ideals. As the concept of the alter ego of prayer becomes supreme and divine, so are man's ideals accordingly elevated from mere human toward supernal and divine levels, and the result of all such praying is the enhancement of human character and the profound unification of human personality.

91:5.2 (998.5) But prayer need not always be individual. Group or congregational praying is very effective in that it is highly socializing in its repercussions. When a group engages in community prayer for moral enhancement and spiritual uplift, such devotions are reactive upon the individuals composing the group; they are all made better because of participation. Even a whole city or an entire nation can be helped by such prayer devotions. Confession, repentance, and prayer have led individuals, cities, nations, and whole races to mighty efforts of reform and courageous deeds of valorous achievement.

91:5.3 (998.6) If you truly desire to overcome the habit of criticizing some friend, the quickest and surest way of achieving such a change of attitude is to

너희 일생에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의 사회적 방향은 대체로 두 가지 조건에 의존된다:

1. 기도 되고 있는 개인이 그가 기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기도하는 개인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친밀한 사회적 접촉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기도는 기법이며, 얼마 안 가서, 그것으로 모든 종교들은 제도화가 되어간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도는 수많은 두번째 역할의 매개체들과 결합되는데, 사제(司祭), 성스러운 책, 경배 예식, 그리고 의식(儀式)들 처럼, 더러는 도움이 되고 더러는 결정적으로 해롭다.

그러나 보다 위대한 영적 빛을 지닌 마음들은, 자신들의 허약한 영적 통찰력의 동원을 위하여 상징주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다소 부족한 지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너그러움이 있어야만 한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상징물이 없이도 하느님을-의식하는 자들은, 형식과 예식이 없이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존경하기가 어렵고 신(神)을 경배하기가 어려운 자들에게 주고 있는, 상징의 은혜-사명활동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기도넘치는 경배 속에서, 대부분의 필사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의 대상-목표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을 떠올리고 있다.

establish the habit of praying for that person every day of your life. But the social repercussions of such prayers are dependent largely on two conditions:

91:5.4 (998.7) 1. The person who is prayed for should know that he is being prayed for.

91:5.5 (999.1) 2. The person who prays should come into intimate social contact with the person for whom he is praying.

91:5.6 (999.2) Prayer is the technique whereby, sooner or later, every religion becomes institutionalized. And in time prayer becomes associated with numerous secondary agencies, some helpful, others decidedly deleterious, such as priests, holy books, worship rituals, and ceremonials.

91:5.7 (999.3) But the minds of greater spiritual illumination should be patient with, and tolerant of, those less endowed intellects that crave symbolism for the mobilization of their feeble spiritual insight. The strong must not look with disdain upon the weak. Those who are God-conscious without symbolism must not deny the grace-ministry of the symbol to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worship Deity and to revere truth, beauty, and goodness without form and ritual. In prayerful worship, most mortals envision some symbol of the object-goal of their devotions.

제 6 장. 기도의 범위

기도는, 한 영역의 개인적인 영적 기세와 물질적 감독자의 뜻과 행동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의 물리적인 환경에 아무런 직접적 효과를 가질 수가 없다. 기도에서 청원을 펼치는 분야에는 매우 분명한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한 한계가 기도하는 자의 신앙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질병 치료 기법은 아니지만, 넘치는 건강을 누리는 데에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경적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실제적인 질환의 경우에도 기도가 다른 치료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여러 번 증가시키고 있다. 기도는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한 많은 병약자들을, 참아내는 환자의 표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고통받는 인간 고통자들에게 하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기도의 효능에 관하여, 신성한 근원들로부터의 도움과 인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항상 존재하는 충동과 과학적인 의구심을 조화시키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복과 개별적인 자아-통제와 사회적인 조화와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앙으로 하는 진지한

6. THE PROVINCE OF PRAYER

91:6.1 (999.4) Prayer, unless in liaison with the will and actions of the personal spiritual forces and material supervisors of a realm, can have no direct effect upon one's physical environment. While there is a very definite limit to the province of the petitions of prayer, such limits do not equally apply to the *faith* of those who pray.

91:6.2 (999.5) Prayer is not a technique for curing real and organic diseases, but it has contributed enormously to the enjoyment of abundant health and to the cure of numerous mental, emotional, and nervous ailments. And even in actual bacterial disease, prayer has many times added to the efficacy of other remedial procedures. Prayer has turned many an irritable and complaining invalid into a paragon of patience and made him an inspiration to all other human sufferers.

91:6.3 (999.6)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o reconcile the scientific doubtings regarding the efficacy of prayer with the ever-present urge to seek help and guidance from divine sources, never forget that the sincere prayer of faith is a mighty force for the promotion of personal happiness, individual self-control, social harmony,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도는, 심지어 순전히 인간적인 행위인 경우 일지라도, 사람의 타아인 자기와의 대화인데, 인간 마음의 무의식적인 영역 속에 저장되고 보존되는 축적된 인간 본성적 힘들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기법을 조성한다. 기도는, 그것의 종교적인 함축성과 영적인 의의(意義)를 제외한다면, 하나의 건전한 심리적 실천 관행이다. 인간의 체험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만약에 충분히 심각하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어떤 근원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요청할 만큼 게을러서는 안되지만, 너희들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탱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서슴지 말고 그에게 요청해라.

기도는 종교적인 문명의 진보와 보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왔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실, 철학적인 지혜, 지적인 진지함 그리고 영적 신앙의 밝은 빛 안에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사회의 더욱 앞선 진보와 영성화를 이룩하도록 여전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 정직하게, 사심-없이, 공정함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개인적 영적 체험 안에 있는 기도의 효험은, 어떤 식으로도 그러한 경배자의 지적 납득, 철학적 해안, 사회적 차원, 문화적 지위, 또는 그 밖의 필사자의 획득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의 기도에서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리고 체험적이다. 다른 모든 필사자의 성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조물주와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의 문턱, 곧 창조체가 창조자의 실체인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곳에 것처럼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기법은 없다.

moral progress, and spiritual attainment.

91:6.4 (999.7) Prayer, even as a purely human practice, a dialogue with one's alter ego, constitutes a technique of the most efficient approach to the realization of those reserve powers of human nature which are stored and conserved in the unconscious realms of the human mind. Prayer is a sound psychologic practice, aside from its religious implications and its spiritual significance. It is a fact of human experience that most persons, if sufficiently hard pressed, will pray in some way to some source of help.

91:6.5 (999.8) Do not be so slothful as to ask God to solve your difficulties, but never hesitate to ask him for wisdom and spiritual strength to guide and sustain you while you yourself resolutely and courageously attack the problems at hand.

91:6.6 (999.9) Prayer has been an indispensable factor in the progress and preservation of religious civilization, and it still has mighty contributions to make to the further enhancement and spiritualization of society if those who pray will only do so in the light of scientific facts, philosophic wisdom, intellectual sincerity, and spiritual faith. Pray as Jesus taught his disciples — honestly, unselfishly, with fairness, and without doubting.

91:6.7 (1000.1) But the efficacy of prayer in the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of the one who prays is in no way dependent on such a worshiper's intellectual understanding, philosophic acumen, social level, cultural status, or other mortal acquirements. The psychic and spiritual concomitants of the prayer of faith are immediate, personal, and experiential. There is no other technique whereby every man, regardless of all other mortal accomplishments, can so effectively and immediately approach the threshold of that realm wherein he can communicate with his Maker, where the creature contacts with the reality of the Creator,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제 7 장. 신비주의, 황홀경 그리고 영감(靈感)

7.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는 기법인 신비주의는 전체적으로는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천 관행들이 사회적인 고립을 야기하고 종교적인 광신의 지경에 달하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도한 신비주의가 신성한 통찰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에서 솟아난 것인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있다. 필사자 마음이 그 속에 내주하는 조절자와 접촉하는 것은, 현신적인 명상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자기 동료 창조체들에 대한 사심-없는 사

91:7.1 (1000.2) Mysticism, as the technique of the cultiv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God, is altogether praiseworthy, but when such practices lead to social isolation and culminate in religious fanaticism, they are all but reprehensible. Altogether too frequently that which the overwrought mystic evaluates as divine inspiration is the uprisings of his own deep mind. The contact of the mortal mind with its indwelling Adjuster, while often favored by devoted meditation, is more frequently facilitated by wholehearted and loving

명활동 안에서 전심어리고 사랑 넘치는 봉사에 의해서 점점 더 자주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지나간 시대들에 있었던 위대한 종교 교사(教師)들과 선지자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아는 남자와 여자들이었고, 자기 이웃 사람들을 사심없이 보살핌으로써 자신들의 하느님을 최선으로 섬겼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묵상과 기도를 하도록 시키신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들이 대중들과의 접촉하는-봉사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사람의 혼에게는 영적 영양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영적 실습이 요구된다.

종교적인 황홀경은 마음이 멀쩡한 상태에서 야기된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그러한 체험들은 깊은 영적 성격의 현시활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감성적인 영향들로부터 야기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종교적인 개인들은, 모든 생생한 심리적 예감들과 모든 강력한 감상적 체험들을 일종의 신성한 계시 또는 영적인 교통이라고 간주해서는 결코 안된다. 참된 종교적 황홀경은 대개 심오한 외적(外的) 평온함과 거의 완전한 감정적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참된 예언적 환상은 초(超)심리적 예감이다. 그러한 천상의 방문들은 허위적인 환각이 아니며, 또한 무아경(無我境)의 황홀함도 아니다.

인간 마음은, 잠재의식이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또는 초의식의 충동에 대하여 그것이 민감할 때 소위 영감(靈感)이라고 불리는 것에 응답하여 작동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의식(意識) 내용물의 그러한 증강이 개인에게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어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광신(狂信)과 자유분방한 종교적 황홀경은, 통찰력에 대한 증명서, 신성한 증명서로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신비주의와 황홀경 그리고 영감(靈感)의 이러한 이상한 종교적 체험들에 대한 실천적 진단은 이들 현상이 한 개별존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1. 더 낮고 더 완벽한 육체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가.
2. 그의 정신적 삶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기능하는가.
3.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그리고 더욱 기쁘게 사회화하는가.
4. 일상적인 필사자 실존에 있어서의 평범한 임무들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매일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영성화 시키는가.
5.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이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가.
6. 현재 인지되고 있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시키는가.
7. 그의 영적인 통찰력 — 하느님에 대한 인식

service in unselfish ministry to one's fellow creatures.

91:7.2 (1000.3) The great religious teachers and the prophets of past ages were not extreme mystics. They were God-knowing men and women who best served their God by unselfish ministry to their fellow mortals. Jesus often took his apostles away by themselves for short periods to engage in meditation and prayer, but for the most part he kept them in service-contact with the multitudes. The soul of man requires spiritual exercise as well as spiritual nourishment.

91:7.3 (1000.4) Religious ecstasy is permissible when resulting from sane antecedents, but such experiences are more often the outgrowth of purely emotional influences than a manifestation of deep spiritual character. Religious persons must not regard every vivid psychologic presentiment and every intense emotional experience as a divine revelation or a spiritual communication. Genuine spiritual ecstasy is usually associated with great outward calmness and almost perfect emotional control. But true prophetic vision is a superpsychologic presentiment. Such visitations are not pseudo hallucinations, neither are they trancelike ecstasies.

91:7.4 (1000.5) The human mind may perform in response to so-called inspiration when it is sensitive either to the uprisings of the subconscious or to the stimulus of the superconscious. In either case it appears to the individual that such augmentations of the content of consciousness are more or less foreign. Unrestrained mystical enthusiasm and rampant religious ecstasy are not the credentials of inspiration, supposedly divine credentials.

91:7.5 (1000.6) The practical test of all these strange religious experiences of mysticism, ecstasy, and inspiration is to observe whether these phenomena cause an individual:

- 91:7.6 (1000.7) 1. To enjoy better and more complete physical health.
- 91:7.7 (1000.8) 2.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and practically in his mental life.
- 91:7.8 (1000.9) 3. More fully and joyfully to socialize his religious experience.
- 91:7.9 (1000.10) 4. More completely to spiritualize his day-by-day living while faithfully discharging the commonplace duties of routine mortal existence.
- 91:7.10 (1001.1) 5. To enhance his love for, and appreciation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 91:7.11 (1001.2) 6. To conserve currently recognized social, moral, ethical, and spiritual values.
- 91:7.12 (1001.3) 7. To increase his spiritual insight —

(認識) — 을 증대시키는가.

그러나 기도는 이러한 특별한 종교적 체험들과 실제적으로 관계적-연합되어 있지 않다. 기도가 과도하게 심미적(審美的)인 상태가 되면, 천국의 신성(神性)에 대한 더 없이 행복한 깊은 사색과 아름다움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화시키는 그것의 영향력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사사로운 기도와 연관된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집단적인 기도, 공동체의 헌신에 의해 교정되고 예방된다.

제 8 장.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기도에는 진정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전혀 생기기 전에 원시인이 이미 스스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닥칠 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충동을 체험하였다;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기도는 마술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 마술은 상황에 맞게 신(神)을 조절하려는 것이었고; 기도는 개인성을 신(神)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지만; 마술은 그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

기도는 확립된 관습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기적인 기원을 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감사에 대한 조용한 표현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찬양에 대한 집단적인 표현, 공동체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종교를 흉내낸 것이기도 하지만, 참된 기도란 창조체의 영적인 본성이 어디든지 계시는 창조자의 영의 현존과 나누는 진지하고도 신뢰하는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을-의식함의 자발적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신학적 공식의 의미없는 낭독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혼(魂)의 환희에 넘치는 찬미일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에-지배당한 필사자의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때로는 영적 간청의 깊은 감상적 표현이고 그리고 때로는 경건한 구절들의 뻔뻔스러운 소리침이다. 기도는 기쁨넘치는 찬미일 수도 있으며 용서를 위한 겸손한 탄원일 수도 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탄원일 수도 있고, 또는 도덕적인 성장과 영적인 힘을 원하는 성숙한 애원일 수도 있다. 청원은 날마다 필요한 빵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찾아 내어 그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전력의 염원을 체현

God-consciousness.

91:7.13 (1001.4) But prayer has no real association with these exceptional religious experiences. When prayer becomes overmuch aesthetic, when it consists almost exclusively in beautiful and blissful contemplation of paradisiacal divinity, it loses much of its socializing influence and tends toward mysticism and the isolation of its devotees. There is a certain danger associated with overmuch private praying which is corrected and prevented by group praying, community devotions.

8. PRAYING AS A PERSONAL EXPERIENCE

91:8.1 (1001.5) There is a truly spontaneous aspect to prayer, for primitive man found himself praying long before he had any clear concept of a God. Early man was wont to pray in two diverse situations: When in dire need, he experienced the impulse to reach out for help; and when jubilant, he indulged the impulsive expression of joy.

91:8.2 (1001.6) Prayer is not an evolution of magic; they each arose independently. Magic was an attempt to adjust Deity to conditions; prayer is the effort to adjust the personality to the will of Deity. True prayer is both moral and religious; magic is neither.

91:8.3 (1001.7) Prayer may become an established custom; many pray because others do. Still others pray because they fear something direful may happen if they do not offer their regular supplications.

91:8.4 (1001.8) To some individuals prayer is the calm expression of gratitude; to others, a group expression of praise, social devotions; sometimes it is the imitation of another's religion, while in true praying it is the sincere and trusting communication of the spiritual nature of the creature with the anywhere presence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91:8.5 (1001.9) Prayer may be a spontaneous expression of God-consciousness or a meaningless recitation of theologic formulas. It may be the ecstatic praise of a God-knowing soul or the slavish obeisance of a fear-ridden mortal. It is sometimes the pathetic expression of spiritual craving and sometimes the blatant shouting of pious phrases. Prayer may be joyous praise or a humble plea for forgiveness.

91:8.6 (1001.10) Prayer may be the childlike plea for the impossible or the mature entreaty for moral growth and spiritual power. A petition may be for daily bread or may embody a wholehearted yearning to find God and to do his will. It may be a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온통 이기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사심-없는 형제신분의 실현을 향한 참되고 뛰어난 몸짓일 수도 있다.

기도는 복수를 위한 성난 고함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적을 위해 자비를 간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바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법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길을 잃었던 죄인이 필경 준엄하다 여겨지는 재판관 앞에서 움츠리면서 하는 비굴한 탄원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해방된 아들의 기쁨 넘치는 표현일 수도 있다.

현대인은 순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느님과 일들에 관해 대화한다는 생각때문에 당혹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기도를 내던져 버렸다; 그들은 오직 특별한 압력 아래에 있어야—비상시에—기도한다. 사람은 하느님과 대화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오직 영적 어린이만이 을 설득하려 하거나 주체님께 변화시키려고 나선다. .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는 실제 달성을 한다. 심지어는 공기 기류가 상승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새든지 날개를 활짝 펴지 않고는 솟구쳐 오를 수 없다. 기도는 사람을 높이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상승하는 영적 기류의 활용함으로써 진보해 나아가는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도는 영적 성장에 보탬이 되고, 태도를 변경하고, 신성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만족을 산출한다. 그것은 하느님을-의식함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하느님은 진리에 대한 증강된 계시와 아름다움에 대한 증진된 인식 그리고 선함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사람에게 제공하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주관적인 몸짓이지만, 인간 체험의 영적 차원들에서 막강한 객관적 실체들과 접촉을 이룬다; 그것은 인간이 초인간적인 가치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넘치는 내뻗침이다. 그것은 가장 효능이 있는 영적-성장 자극제이다.

말은 기도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영적 애원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어쩌다 맡겨볼 수도 있는 단순한 지적 통로에 불과하다. 기도에서의 말의 가치는 사적인 헌신 예배에서는 순전히 자기 암시이며 그리고 집단적 헌신 예배에서는 사회적 암시에 불과하다. 하느님은 그 혼의 태도에 응답하며, 말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는 갈등으로부터 회피하는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직면하여 자라가게 하는 자극제이다. 오직 가치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충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wholly selfish request or a true and magnificent gesture toward the realization of unselfish brotherhood.

91:8.7 (1001.11) Prayer may be an angry cry for vengeance or a merciful intercession for one's enemies. It may be the expression of a hope of changing God or the powerful technique of changing one's self. It may be the cringing plea of a lost sinner before a supposedly stern Judge or the joyful expression of a liberated son of the living and merciful heavenly Father.

91:8.8 (1001.12) Modern man is perplexed by the thought of talking things over with God in a purely personal way. Many have abandoned regular praying; they only pray when under unusual pressure — in emergencies. Man should be unafraid to talk to God, but only a spiritual child would undertake to persuade, or presume to change, God.

91:8.9 (1002.1) But real praying does attain reality. Even when the air currents are ascending, no bird can soar except by outstretched wings. Prayer elevates man because it is a technique of progressing by the utilization of the ascending spiritual currents of the universe.

91:8.10 (1002.2) Genuine prayer adds to spiritual growth, modifies attitudes, and yields that satisfaction which comes from communion with divinity. It is a spontaneous outburst of God-consciousness.

91:8.11 (1002.3) God answers man's prayer by giving him an increased revelation of truth, an enhanced appreciation of beauty, and an augmented concept of goodness. Prayer is a subjective gesture, but it contacts with mighty objective realities on the spiritual levels of human experience; it is a meaningful reach by the human for superhuman values. It is the most potent spiritual-growth stimulus.

91:8.12 (1002.4) Words are irrelevant to prayer; they are merely the intellectual channel in which the river of spiritual supplication may chance to flow. The word value of a prayer is purely autosuggestive in private devotions and sociosuggestive in group devotions. God answers the soul's attitude, not the words.

91:8.13 (1002.5) Prayer is not a technique of escape from conflict but rather a stimulus to growth in the very face of conflict. Pray only for values, not things; for growth, not for gratification.

제 9 장.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9. CONDITIONS OF EFFECTIVE PRAYER

만일에 너희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한

91:9.1 (1002.6) If you would engage in effective

다면, 널리 효력을 미치는 청원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겨야만 한다:

1. 너희는 우주실체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용기 넘치게 마주함으로서 힘 있는 기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너희는 조화 우주 정력(精力)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2. 너희는 인간적인 조절을 위한 인간적인 재능을 정직하게 모두 쏟아 부어야만 한다. 너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너희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포옹에 내어 맡겨야만 한다. 너희는 의미들의 향상과 가치들의 증진을 체험했어야 한다.

4. 너희는 신성한 뜻에 대한 전심어린 선택을 일으키고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우유부단의 죽어있는 중심(中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뜻을 실제적으로 행하려고 분별불가적인 헌납과 역동적인 봉헌을 일으켜 발휘하고 있어야 한다.

6. 너희 기도는 오로지 파라다이스를 향한 상승 —신성한 완전성 달성— 안에서 마주치는 특정한 인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성한 지혜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신앙 — 살아있는 신앙 — 을 가져야만 한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praying, you should bear in mind the laws of prevailing petitions:

91:9.2 (1002.7) 1. You must qualify as a potent prayer by sincerely and courageously facing the problems of universe reality. You must possess cosmic stamina.

91:9.3 (1002.8) 2. You must have honestly exhausted the human capacity for human adjustment. You must have been industrious.

91:9.4 (1002.9) 3. You must surrender every wish of mind and every craving of soul to the transforming embrace of spiritual growth. You must have experienced an enhancement of meanings and an elevation of values.

91:9.5 (1002.10) 4. You must make a wholehearted choice of the divine will. You must obliterate the dead center of indecision.

91:9.6 (1002.11) 5. You not only recognize the Father's will and choose to do it, but you have effected an unqualified consecration, and a dynamic dedication, to the actual doing of the Father's will.

91:9.7 (1002.12) 6. Your prayer will be directed exclusively for divine wisdom to solve the specific human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aradise ascension — the attainment of divine perfection.

91:9.8 (1002.13) 7. And you must have faith — living faith.

91:9.9 (1002.14) [Presented by the Chief of the Urantia Midwayers.]

제 92 편 종교의 후기 진화

⇨ 091

유랜시아 책

09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2 편 종교의 후기 진화

섹션

소개

- 제 1 장. 종교의 진화적인 본성
- 제 2 장. 종교와 사회관계
- 제 3 장. 진화 종교의 본성
- 제 4 장. 계시의 선물
- 제 5 장. 위대한 종교적 영도자들
- 제 6 장. 혼성된 종교들
- 제 7 장. 종교의 계속적인 진화

PAPER 92

THE LATER EVOLUTION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Evolutionary Nature of Religion
- 2. Religion and the Mores
- 3. The Nature of Evolutionary Religion
- 4. The Gift of Revelation
- 5. The Great Religious Leaders
- 6. The Composite Religions
- 7. The Further Evolution of Religion

소개

사람은 유란시아에 어떤 체계적인 계시들도 주어지기 훨씬 전에 자신의 진화적인 체험의 일부 부분으로써 자연적으로 기원된 일종의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기원된 이 종교 그 자체는 사람의 초(超)동물적 자질들의 산물이다. 진화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체험적 생애에 두루 미개인과 야만인 그리고 문명인 속에서 작용하고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향들의 역할을 통하여 서서히 발생되었다:

1. 경배의 보조자—실체를 인식하기 위한 초(超)동물적 잠재에서의 동물적 의식(意識) 속에서 출현함. 이것은 신(神)을 향한 근본적인 인간 본능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2. 지혜의 보조자—보다 높은 표현 방향 속에서 신(神) 실체(實體)에 대한 계속 확대되는 개념들을 향하여 그것의 숭배를 지도하는 경향이 있는 경건한 마음속에 현시활동.

3. 성령—이것은 최초의 초(超)마음 증여이며,

INTRODUCTION

92:0.1 (1003.1) MAN possessed a religion of natural origin as a part of his evolutionary experience long before any systematic revelations were made on Urantia. But this religion of *natural* origin was, in itself, the product of man's superanimal endowments. Evolutionary religion arose slowly throughout the millenniums of mankind's experiential career through the ministry of the following influences operating within, and impinging upon, savage, barbarian, and civilized man:

92:0.2 (1003.2) 1. *The adjutant of worship* — the appearance in animal consciousness of superanimal potentials for reality perception. This might be termed the primordial human instinct for Deity.

92:0.3 (1003.3) 2. *The adjutant of wisdom* — the manifestation in a worshipful mind of the tendency to direct its adoration in higher channels of expression and toward ever-expanding concepts of Deity reality.

92:0.4 (1003.4) 3. *The Holy Spirit* — this is the initial

진실한 모든 인간적 개인성들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경배-갈망과 지혜-욕구의 마음에 대한 이 사명 활동은, 신학적 개념 안에서 그리고 또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개인성 체험에 따른 둘 모두 안에서, 인간 생존에 대한 기본원리를 자아-인식하는 수용능력을 창조한다.

이러한 세 가지 신성한 역할들의 조화-협동 기능은 진화 종교를 태동시키고 추진시키기에 아주 충분하다. 이러한 영향들은 나중에 생각 조절 자들과 세라핌천사들 그리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증강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종교적인 발전의 속도를 가속시킨다. 이들 대리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기능을 해왔는데, 이 행성이 거주민이 사는 구체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존속될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대리자들의 잠재 대부분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 대부분은 필사자 종교가 모론시아의 가치와 영 진실의 천상(天上)의 정상을 향하여 단계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앞으로 올 시대에 밝혀질 것이다.

제 1 장. 종교의 진화적인 본성

종교의 진화는 초기의 두려움과 귀신들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뒤를 잇는 여러 가지 발전 단계들을 거쳤는데, 그 중에는 영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부족의 주물들은 토템과 부족 하느님들로 발전하였다; 마술적인 방식들은 오늘날의 기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희생 제물의 형태였던 할례는 위생적인 절차의 하나로 바뀌었다.

종교는 종족들의 미개한 미성숙 단계 전체 기간에 걸쳐 자연 경배로부터 발전하여 귀신 경배 단계를 거치고 주물숭배로 변화되었다. 문명의 태동과 함께 인간 종족은 더욱 신비하고 상징적인 신앙들을 신봉하였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숙기에 접근하면서, 인류는 실제 종교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 심지어는 진리 그 자체의 계시의 시작을 위하여 무르익어가고 있다.

종교는 영적인 신념들과 환경에 대한 마음의 생물학적 반응으로써 생겨났으며; 한 종족 안에서 소멸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궁극적인 것이다. 종교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조절이다. 사회적인 관례로서 그것은 종교적 관습들, 상징들, 숭배자 집단, 경전들, 제단들, 성소들, 신전들을 포용하고 있다. 성수, 유물, 주물, 부적, 제의, 종(鐘), 북, 그리고 사제 제도 등은 모든 종교들에게 공통적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진화된 종교로부터 마술이나 마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비와 힘은 언제나 종교적 느낌과 두려움을 자극해 온 반면, 감정은 항상 그것들의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조절 요소로 기능하였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근본적인 종교적 자극제가 되어 왔다. 두려움은 진화 종교의 하느님들을 형성하였고 원

supermind bestowal, and it unfailingly appears in all bona fide human personalities. This ministry to a worship-craving and wisdom-desiring mind creates the capacity to self-realize the postulate of human survival, both in theologic concept and as an actual and factual personality experience.

92:0.5 (1003.5) The co-ordinate functioning of these three divine ministrations is quite sufficient to initiate and prosecute the growth of evolutionary religion. These influences are later augmented by Thought Adjusters, seraphim, and the Spirit of Truth, all of which accelerate the rate of religious development. These agencies have long functioned on Urantia, and they will continue here as long as this planet remains an inhabited sphere. Much of the potential of these divine agencies has never yet had opportunity for expression; much will be revealed in the ages to come as mortal religion ascends, level by level, toward the supernal heights of morontia value and spirit truth.

1. THE EVOLUTIONARY NATURE OF RELIGION

92:1.1 (1003.6) The evolution of religion has been traced from early fear and ghosts down through many successive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those efforts first to coerce and then to cajole the spirits. Tribal fetishes grew into totems and tribal gods; magic formulas became modern prayers. Circumcision, at first a sacrifice, became a hygienic procedure.

92:1.2 (1003.7) Religion progressed from nature worship up through ghost worship to fetishism throughout the savage childhood of the races. With the dawn of civilization the human race espoused the more mystic and symbolic beliefs, while now, with approaching maturity, mankind is ripening for the appreciation of real religion, even a beginning of the revelation of truth itself.

92:1.3 (1004.1) Religion arises as a biologic reaction of mind to spiritual beliefs and the environment; it is the last thing to perish or change in a race. Religion is society's adjustment, in any age, to that which is mysterious. As a social institution it embraces rites, symbols, cults, scriptures, altars, shrines, and temples. Holy water, relics, fetishes, charms, vestments, bells, drums, and priesthoods are common to all religions. And it is impossible entirely to divorce purely evolved religion from either magic or sorcery.

92:1.4 (1004.2) Mystery and power have always stimulated religious feelings and fears, while emotion has ever functioned as a powerful conditioning factor in their development. Fear has always been the basic religious stimulus. Fear

시적인 신앙인들의 종교적 경배를 유발시켰다. 문명이 발전되자, 두려움은 존경과 찬양과 존중과 동정심에 의해 수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에 의해서 더욱 조절되었다.

아시아의 어떤 민족은 “하느님은 심히 두려운 존재이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순전히 진화 종교에서 발생된 것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삶을 계시하셨던 예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였다.

제 2 장. 종교와 사회관례

종교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 중에서 가장 완고하고 단호한 것이지만, 변화하는 공동체에 적응하기를 싫어한다. 결국에는 진화 종교가 변화하는 사회관례를 반영하게 되는데, 역으로 그 관습은 계시된 종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서서히, 분명하게, 그러나 마지못해서, 종교(경배)는 지혜—체험적인 이성—에 의해 지도되고 신성한 계시에 의해 조명되는 지식—의 뒤를 쫓아서 따라간다.

종교는 사회관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였던 것은 오래되었고 신성하게 여겨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돌로 만든 도구들이 청동기와 철기 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된 제단을 만들 때에는, 다들은 돌로 만들지 말 것이니, 만일 너희가 도구를 사용하여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힌두교도들은 제단의 불을 붙일 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종교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례에 있어서 새롭고도 가공된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고 가장 원시적인 음식물만이 허용되었는데: “불로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쓴 나물들과 함께 제공되었다.” 모든 유형의 사회적 관습들과 심지어는 법정의 절차들도 옛 형태들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인이 여러 다른 종교의 경전들 안에서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놀라게 될 때, 그들은 예전 세대들이 그들 조상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만 한다. 어떤 세대가 음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그 이전 세대에 그들이 사회관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는 인정된 종교예식이라고 여겼다. 상당히 많은 종교적 논쟁들은, 오래되었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실천 관행들을 새롭게 진보된 논리와 조화시키려는, 옛날의 진부한 관습들을 교리로서 영속화시키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럴듯한 이론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시도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종교적인 성장에 있어서 너무 갑작스러운 향상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이

fashions the gods of evolutionary religion and motivates the religious ritual of the primitive believers. As civilization advances, fear becomes modified by reverence, admiration, respect, and sympathy and is then further conditioned by remorse and repentance.

92:1.5 (1004.3) One Asiatic people taught that “God is a great fear”; that is the outgrowth of purely evolutionary religion. Jesus, the revelation of the highest type of religious living, proclaimed that “God is love.”

2. RELIGION AND THE MORES

92:2.1 (1004.4) Religion is the most rigid and unyielding of all human institutions, but it does tardily adjust to changing society. Eventually, evolutionary religion does reflect the changing mores, which, in turn, may have been affected by revealed religion. Slowly, surely, but grudgingly, does religion (worship) follow in the wake of wisdom — knowledge directed by experiential reason and illuminated by divine revelation.

92:2.2 (1004.5) Religion clings to the mores; that which was is ancient and supposedly sacred. For this reason and no other, stone implements persisted long into the age of bronze and iron. This statement is of record: “And if you will make me an altar of stone, you shall not build it of hewn stone, for, if you use your tools in making it, you have polluted it.” Even today, the Hindus kindle their altar fires by using a primitive fire drill. In the course of evolutionary religion, novelty has always been regarded as sacrilege. The sacrament must consist, not of new and manufactured food, but of the most primitive of viands: “The flesh roasted with fire and unleavened bread served with bitter herbs.” All types of social usage and even legal procedures cling to the old forms.

92:2.3 (1004.6) When modern man wonders at the presentation of so much in the scriptures of different religions that may be regarded as obscene, he should pause to consider that passing generations have feared to eliminate what their ancestors deemed to be holy and sacred. A great deal that one generation might look upon as obscene, preceding generations have considered a part of their accepted mores, even as approved religious rituals. A considerable amount of religious controversy has been occasioned by the never-ending attempts to reconcile olden but reprehensible practices with newly advanced reason, to find plausible theories in justification of creedal perpetuation of ancient and outworn customs.

92:2.4 (1004.7) But it is only foolish to attempt the too sudden acceleration of religious growth. A race or

다. 종족 또는 민족은 어떤 진보된 종교에서든지 단지, 현재의 진화적인 지위와 합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호환성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적응에 대한 적절한 분위기가 더해질 때에 한하여 동화될 수 있을 뿐이다. 사회적, 기후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은 모두 종교적 진화의 과정과 발전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도덕성은 종교에 의해서, 진화 종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의 형태들이 그 인종의 도덕성에 의해 규정된다.

사람 종족들은 이상하고 새로운 종교를 오직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회관례와 옛날의 신앙 방법에 끼워 맞추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특이한 부족의 경우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그들의 사제(司祭)들은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만 받아들인 후에, 자기 부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자유롭게 성(性)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난을 받을만한 수많은 다른 구시대의 관습들을 지키도록 허용한다는 직접적인 계시를 가브리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로 그리스도 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새롭고도 덜 엄격한 그리스도교로 즉시 개종하였다.

종교는 한 때 모든 종류의 부적합한 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인정하였는데, 현재는 비도덕적이거나 죄악시되는 모든 것들을 실천적으로 허용한 때가 있었다. 체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양심은 인간의 행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양심은 인간의 혼에게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이 아니다.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단계의 사회관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총합에 불과하다;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의 반응에 대해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이상(理想)을 대변할 뿐이다.

제 3 장. 진화 종교의 본성

인간 종교에 대한 연구는 지나간 시대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 사회적 계층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사람모습의-신(神)으로서의 하느님들에 대한 사회관례는 맨 처음 그러한 신(神)들을 착상한 사람들의 도덕의 참다운 반영이다. 고대의 종교들과 신화는 오래 전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믿음과 전통을 신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예배종과 실천 관행들은 보다 새로운 경제적 관습들과 사회적인 진화들과 함께 존속하였으며, 물론 심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 예배종과의 남은 흔적들이 과거의 인종적인 종교들의 참된 특성들을 보여준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배종과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조들을 보급하기 위하여 형태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종교는 언제나 대부분 종교예배, 의식절차, 관행, 예식, 독단론의 문제였다. 그것은 대개 끊임

nation can only assimilate from any advanced religion that which is reasonably consistent and compatible with its current evolutionary status, plus its genius for adaptation. Social, clima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re all influential in determining the course and progress of religious evolution. Social morality is not determined by religion, that is, by evolutionary religion; rather are the forms of religion dictated by the racial morality.

92:2.5 (1005.1) Races of men only superficially accept a strange and new religion; they actually adjust it to their mores and old ways of believing.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example of a certain New Zealand tribe whose priests, after nominally accepting Christianity, professed to have received direct revelations from Gabriel to the effect that this selfsame tribe had become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directing that they be permitted freely to indulge in loose sex relations and numerous other of their olden and reprehensible customs. And immediately all of the new-made Christians went over to this new and less exacting version of Christianity.

92:2.6 (1005.2) Religion has at one time or another sanctioned all sorts of contrary and inconsistent behavior, has at some time approved of practically all that is now regarded as immoral or sinful. Conscience, untaught by experience and unaided by reason, never has been, and never can be, a safe and unerring guide to human conduct. Conscience is not a divine voice speaking to the human soul. It is merely the sum total of the moral and ethical content of the mores of any current stage of existence; it simply represents the humanly conceived ideal of reaction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3. THE NATURE OF EVOLUTIONARY RELIGION

92:3.1 (1005.3) The study of human religion is the examination of the fossil-bearing social strata of past ages. The mores of the anthropomorphic gods are a truthful reflection of the morals of the men who first conceived such deities. Ancient religions and mythology faithfully portray the beliefs and traditions of peoples long since lost in obscurity. These olden cult practices persist alongside newer economic customs and social evolutions and, of course, appear grossly inconsistent. The remnants of the cult present a true picture of the racial religions of the past. Always remember, the cults are formed, not to discover truth, but rather to promulgate their creeds.

92:3.2 (1005.4) Religion has always been largely a matter of rites, rituals, observances, ceremonies,

없이 평온과-이간질하는 실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에 오염되어 왔다. 기본적인 종교 관념 곧, 주문-낭송, 영감, 계시, 신-달래기, 참회, 죄 값 갚기, 중재, 희생 제물, 기도, 자백, 경배, 죽은 뒤의 생존, 성례, 예식, 면죄, 구원, 대속, 계약, 더러움, 정화, 예언, 원죄들—그것들은 모두 원시적인,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던 옛 시절로 거슬러 되돌아간다.

원시적인 종교는 무덤 저편의 생활을 인정하기까지 확장된 물질적 실존에 대한 갈등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조가 발견되는 것은, 상상에 의한 귀신-영 세계의 권역 속으로 자아-보존 투쟁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조심하기 바란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관념이 갖는 힘이 그 확실성이나 진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그것을 호소하는 생생함에 있다는 것이다.

진화 종교는 변화 또는 개정을 준비시키지 않는다; 과학과는 달리, 그것은 그 자체의 진보적인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진화된 종교는 존중을 강요하는데 그것은 그 추종자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때 성인(聖人)들에게 전해졌던 그 신앙은”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이었고 오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 예배종파는 발전을 반대하였는데, 왜냐하면 실제 진보는 그 예배종파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파괴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강요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로지 두 가지 영향들만이 자연 종교의 독단론을 변화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데: 서서히 전진하는 사회관례의 압력과 주기적으로 밝혀지는 신기원인 계시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의 속도가 느린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진보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은 요술쟁이로 취급되어 살해되었다. 그 예배종파는 세대 안에서 신(新)시대와 그리고 긴 세월의 순환 주기 속에서 느리게 전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움직인다. 귀신들에 대한 진화적인 믿음은, 그 기원이 되는 미신을 결국에는 파괴시키게 될 계시 종교의 철학을 위하여 기초를 깔아 주었다.

종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발전을 방해해 왔지만, 종교가 없었다면 영속적인 도덕성도 윤리도 없었을 것이며, 훌륭한 문명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는 많은 비종교적 문화의 어머니가 되었다: 조각술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고안건축술은 신전 건축에서, 시문학은 주문에서, 음악은 경배의 영창으로부터, 연극은 영의 안내를 위한 행위에서, 그리고 춤은 계절적인 경배 축제로부터 기원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보존에 종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촉진시키고 유지시켰을 바로 그 문명을 무능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는 사실 역시 기록되어야만 한다. 종교

and dogmas. It has usually become tainted with that persistently mischief-making error, the chosen-people delusion. The cardinal religious ideas of incantation, inspiration, revelation, propitiation, repentance, atonement, intercession, sacrifice, prayer, confession, worship, survival after death, sacrament, ritual, ransom, salvation, redemption, covenant, uncleanness, purification, prophecy, original sin — they all go back to the early times of primordial ghost fear.

92:3.3 (1005.5) Primitive religion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the struggle for material existence extended to embrace existence beyond the grave. The observances of such a creed represented the extension of the self-maintenance struggle into the domain of an imagined ghost-spirit world. But when tempted to criticize evolutionary religion, be careful. Remember, that is *what happened*; it is a historical fact. And further recall that the power of any idea lies, not in its certainty or truth, but rather in the vividness of its human appeal.

92:3.4 (1006.1) Evolutionary religion makes no provision for change or revision; unlike science, it does not provide for its own progressive correction. Evolved religion commands respect because its followers believe it is *The Truth*;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must, in theory, be both final and infallible. The cult resists development because real progress is certain to modify or destroy the cult itself; therefore must revision always be forced upon it.

92:3.5 (1006.2) Only two influences can modify and uplift the dogmas of natural religion: the pressure of the slowly advancing mores and the periodic illumination of epochal revelation. And it is not strange that progress was slow; in ancient days, to be progressive or inventive meant to be killed as a sorcerer. The cult advances slowly in generation epochs and agelong cycles. But it does move forward. Evolutionary belief in ghosts laid the foundation for a philosophy of revealed religion which will eventually destroy the superstition of its origin.

92:3.6 (1006.3) Religion has handicapped social development in many ways, but without religion there would have been no enduring morality nor ethics, no worth-while civilization. Religion enmothered much nonreligious culture: Sculpture originated in idol making, architecture in temple building, poetry in incantations, music in worship chants, drama in the acting for spirit guidance, and dancing in the seasonal worship festivals.

92:3.7 (1006.4) But while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religion wa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civilization, it should be recorded that natural religion has also done much to cripple and handicap the very civilization which it otherwise fostered and maintained. Religion has

는 산업 활동들과 경제적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노동을 낭비해 왔고 자본을 탕진해 왔으며; 가정 체제에 항상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평화와 선한 뜻을 충분히 조장하지 않았다; 때로는 교육을 무시하고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죽음을 거짓되게 장식하기 위하여 삶을 과도하게 악화시켰다. 진화 종교, 인간의 종교는 이러한 모든 것들과 그 외에도 더 많은 오류들과 실수들 그리고 실책들을 범하는 죄를 지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화적 윤리와 문명화된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후대에 계시된 종교로 하여금 이러한 많은 진화적 결점들을 보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는 사람이 지불한 가장 비싼 비용이 되어 왔지만 비할 데 없이 효력적인 제도였다. 사람적인 종교는 오직 진화적인 문명의 견지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상승적인 산물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종교적 발전 과정은 정당화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종교는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켰으며; 특정한 종류의 일들을 육성하였고; 시간이 남는 사제들에 의해서 예술과 지식이 증진되었다; 윤리적인 방편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초기 실수들의 결과로 인류는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정직한 무당들과 부정직한 무당들 때문에 몹시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지만, 그들은 그 값에 해당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학구적인 전문직들과 과학 그 자체는 더부살이하는 사제 제도로부터 발생되었다. 종교는 문명을 육성시켰고 사회적인 공동체를 제공하였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도덕적인 경찰력이 되어 왔다. 종교는 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단련과 자아-통제를 제공하였다. 종교는 게으르고 고통 받는 인간성으로 하여금 지적인 타성의 천연적인 상태에서부터 앞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게 하여 이성과 지혜의 높은 차원들로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진화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채찍이다.

그리고 동물로부터 상승한 존재의 이러한 종교적인 유산은, 계시된 종교의 계속적인 검열에 의해서 그리고 참된 과학의 맹렬한 용광로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제되고 고상하게 되어야만 한다.

제 4 장. 계시의 선물

계시는 진화적이지만 항상 진보적이다. 세계 역사의 시대들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의 계시들은 항상 확대되었고 연속적으로 더욱 많은 깨우침을 이룩하였다. 연속적인 진화의 종교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것이 계시의 임무이다. 그러나 만약에 계시가 진화적인 그 종교들을 고상하게 하고 증진시킨다면, 그러한 신성한 축복들은 그것들이 계시된 그 시대의 생각과 반응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르침들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래서 계시는 항상 진화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의 종교는 언제나 반드시 사람의 접수성의 수용능력에 의해서 제한

hampered industrial activ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t has been wasteful of labor and has squandered capital; it has not always been helpful to the family; it has not adequately fostered peace and good will; it has sometimes neglected education and retarded science; it has unduly impoverished life for the pretended enrichment of death. Evolutionary religion, human religion, has indeed been guilty of all these and many more mistakes, errors, and blunders; nevertheless, it did maintain cultural ethics, civilized morality, and social coherence, and made it possible for later revealed religion to compensate for these many evolutionary shortcomings.

92:3.8 (1006.5) Evolutionary religion has been man's most expensive but incomparably effective institution. Human religion can be justified only in the light of evolutionary civilization. If man were not the ascendant product of animal evolution, then would such a course of religious development stand without justification.

92:3.9 (1006.6) Religion facilitate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t fostered work of certain kinds; the leisure of the priests promoted art and knowledge; the race, in the end, gained much as a result of all these early errors in ethical technique. The shamans, honest and dishonest, were terribly expensive, but they were worth all they cost. The learned professions and science itself emerged from the parasitical priesthoods. Religion fostered civilization and provided societal continuity; it has been the moral police force of all time. Religion provided that human discipline and self-control which made *wisdom* possible. Religion is the efficient scourge of evolution which ruthlessly drives indolent and suffering humanity from its natural state of intellectual inertia forward and upward to the higher levels of reason and wisdom.

92:3.10 (1006.7) And this sacred heritage of animal ascent, evolutionary religion, must ever continue to be refined and ennobled by the continuous censorship of revealed religion and by the fiery furnace of genuine science.

4. THE GIFT OF REVELATION

92:4.1 (1007.1) Revelation is evolutionary but always progressive. Down through the ages of a world's history, the revelations of religion are ever-expanding and successively more enlightening. It is the mission of revelation to sort and censor the successive religions of evolution. But if revelation is to exalt and upstep the religions of evolution, then must such divine visitations portray teachings which are not too far removed from the thought and reactions of the age in which they are presented. Thus must and does revelation always keep in touch with evolution. Always must the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연결성이나 또는 유래와 상관 없이, 계시 종교들은 항상 최종적인 가치를 갖는 어떤 신(神)을 믿는 특징이 있고 죽음 이후에 개인성 정체성이 생존된다는 어떤 개념을 믿는 특징이 있다.

진화 종교는 논리적이지 않고 정서적이다. 그것은 가상적인 귀신-영 세계—인간 믿음-반영,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에 의해 자극됨—를 믿는 믿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계시 종교는 실제적인 영적 세계에 의해서 제시된다; 우주적인 신(神)들을 믿고 의존하기에 굶주린 필사자들에 대한 초(超)지능적인 조화우주의 응답이다. 진화 종교는 진리를 찾아서 간접적으로 집단화하는 인간성을 묘사한다; 계시 종교는 바로 그 진리 자체이다.

종교적인 계시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기원인 의의(意義)를 갖는 경우는 다섯 번밖에 없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달라마시아의 가르침들. 첫째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참된 개념은 칼리가스티아 영주 참모진의 육체적인 100명 요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란시아에 제공되었다. 신(神)에 대한 이러한 확대되는 계시는, 교육 체제의 붕괴와 행성 분리에 의해 갑자기 중단될 때까지 300,000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다. 반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달라마시아의 계시의 영향은 온 세상에서 실천적으로 상실되었다. 심지어는 셋-사람들도 아담이 도착될 무렵에는 이 진리는 이미 잊은 상태에 있었다. 그 100명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적색 인종들이 그것들을 가장 오래 간직하였지만, 위대한 영에 대한 관념은 그리스도교와 접촉하였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 속에 있는 어렴풋한 관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때 그것을 크게 강화하고 강화시켰다.

2. 에덴의 가르침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진화적인 민족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에덴의 붕괴는 그것이 언제까지나 충분히 시작되기 전에 아담의-계시의 과정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중단된 아담의 가르침들은 셋-사람 사제들에 의해서 이어졌고, 이 진리들 중의 일부는 이 세상에서 온통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레반트 종족의 종교적인 진화의 전체 경향은 셋-사람들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그러나 기원 전 2,500년경에 이르러서 인류는 에덴의 시대에 후원되었던 계시를 이미 크게 상실한 상태였다.

3. 살렘의 멜기세덱. 비상사태를 위한 네바돈의 아들이 유란시아에 세 번째 계시의 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의 가르침들의 주요 교훈은 신뢰와 신앙이었다. 그는 신뢰가 하느님의 전능한 은혜임을 가르쳤고 신앙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하느님의 호의를 살 수 있는 행위임을 선포하였다. 그의 가르침들은 여러 가지 진화 종교들의 실천 관행들과 신념들과 점차적으로 섞였으며 마침내 그리스

religion of revelation be limited by man's capacity of receptivity.

92.4.2 (1007.2) But regardless of apparent connection or derivation, the religions of revelation are always characterized by a belief in some Deity of final value and in some concept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identity after death.

92.4.3 (1007.3) Evolutionary religion is sentimental, not logical. It is man's reaction to belief in a hypothetical ghost-spirit world — the human belief-reflex, excited by the realization and fear of the unknown. Revelatory religion is propounded by the real spiritual world; it is the response of the superintellectual cosmos to the mortal hunger to believe in, and depend upon, the universal Deities. Evolutionary religion pictures the circuitous gropings of humanity in quest of truth; revelatory religion is that very truth.

92.4.4 (1007.4) There have been many events of religious revelation but only five of epochal significance. These were as follows:

92.4.5 (1007.5) 1. *The Dalamatian teachings.* The true concep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as first promulgated on Urantia by the one hundred corporeal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This expanding revelation of Deity went on for more than three hundred thousand years until it was suddenly terminated by the planetary secession and the disruption of the teaching regime. Except for the work of Van, the influence of the Dalamatian revelation was practically lost to the whole world. Even the Nodites had forgotten this truth by the time of Adam's arrival. Of all who received the teachings of the one hundred, the red men held them longest, but the idea of the Great Spirit was but a hazy concept in Amerindian religion when contact with Christianity greatly clarified and strengthened it.

92.4.6 (1007.6) 2. *The Edenic teachings.* Adam and Eve again portrayed the concept of the Father of all to the evolutionary peoples. The disruption of the first Eden halted the course of the Adamic revelation before it had ever fully started. But the aborted teachings of Adam were carried on by the Sethite priests, and some of these truths have never been entirely lost to the world. The entire trend of Levantine religious evolution was modified by the teachings of the Sethites. But by 2500 B.C. mankind had largely lost sight of the revelation sponsored in the days of Eden.

92.4.7 (1007.7) 3. *Melchizedek of Salem.* This emergency Son of Nebadon inaugurated the third revelation of truth on Urantia. The cardinal precepts of his teachings were *trust* and *faith*. He taught trust in the omnipotent beneficence of God and proclaimed that faith was the act by which men earned God's favor. His teachings gradually commingled with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도 이후 첫 1,000년이 시작될 즈음에 유란시아에 나타난 신학 체계들로 발전하였다.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우주 아버지로서 유란시아에 네 번째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대개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봉사, 그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를 창조체 아들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그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드리는 경배와, 이러한 경배 속에서 그러한 창조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실현 안에서 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제공하는 자유 의지적인 봉사였다.

5. 유란시아 글. 지금 이것이 그 중 하나인, 글들이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가장 최근에 제시된 진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글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들과는 다르다, 이는 이 글들이 단일 우주 개인성의 작업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에 의한 합작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계시라도 완벽하게 달성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천상(天上)의 사명활동들은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이며 실천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지역적 조건에 맞추어졌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것이 모든 계시들의 즉각적인 기세와 권위를 줄어둘게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는 비록 이것의 미래 영향과 권위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에 대한 진리의 가장 최근의 계시인, 그러한 숨김없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가 유란시아에 이르렀다.

various evolutionary religions and finally developed into those theologic systems present on Urantia at the opening of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92:4.8 (1008.1) 4. *Jesus of Nazareth*. Christ Michael presented for the fourth time to Urantia the concept of God as the Universal Father, and this teaching has generally persisted ever since. The essence of his teaching was *love and service*, the loving worship which a creature son voluntarily gives in recognition of, and response to, the loving ministry of God his Father; the freewill service which such creature sons bestow upon their brethren in the joyous realization that in this service they are likewise serving God the Father.

92:4.9 (1008.2) 5. *The Urantia Papers*. The papers, of which this is one, constitute the most recent presentation of truth to the mortals of Urantia. These papers differ from all previous revelations, for they are not the work of a single universe personality but a composite presentation by many beings. But no revelation short of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can ever be complete. All other celestial ministrations are no more than partial, transient, and practically adapted to local conditions in time and space. While such admissions as this may possibly detract from the immediate force and authority of all revelations, the time has arrived on Urantia when it is advisable to make such frank statements, even at the risk of weakening the future influence and authority of this, the most recent of the revelations of truth to the mortal races of Urantia.

제 5 장. 위대한 종교적 영도자들

5. THE GREAT RELIGIOUS LEADERS

진화 종교에 있어서는, 하느님들이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 반면; 계시 종교에서는, —신성의 유한한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지라도—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쳤다; 계시적인 가르침들과 진화의 산물에서 혼합되고 합성된 믿음 안에서, 하느님 개념은 다음의 혼합이다:

1. 진화적인 예배종파들의 선제하는 관념들.
2. 계시된 종교의 숭고한 이상(理想)들.
3. 위대한 종교 영도자들, 인류의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개인적인 관점들.

가장 위대한 종교 신(新)시대는 어떤 눈에 띄는 개인성의 삶과 가르침에 의해서 개시되어 왔으며; 영도자관계가 역사상 훌륭한 도덕적 활동들 대부분을 일으켜 왔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항상 그 영도자를 숭배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그가 선포한 진리들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성을 존경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

92:5.1 (1008.3) In evolutionary religion, the gods are conceived to exist in the likeness of man's image; in revelatory religion, men are taught that they are God's sons — even fashioned in the finite image of divinity; in the synthesized beliefs compounded from the teachings of revelation and the products of evolution, the God concept is a blend of:

92:5.2 (1008.4) 1. The pre-existent ideas of the evolutionary cults.

92:5.3 (1008.5) 2. The sublime ideals of revealed religion.

92:5.4 (1008.6) 3. The personal viewpoints of the great religious leaders, the prophets and teachers of mankind.

92:5.5 (1008.7) Most great religious epochs have been inaugurated by the life and teachings of some outstanding personality; leadership has originated a majority of the worth-while moral movements of history. And men have always tended to venerate the leader, even at the expense of his teachings; to revere his personality, even though losing sight of the truths which he proclaimed. And this is not

에는 이유가 있는데; 진화적인 인간의 가슴속에는 저 위로부터의 도움을 본능적으로 바라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열망은 행성영주와 그 이후의 물질 아들들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을 기대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은 이러한 초인간적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을 빼앗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초자연적인 기원과 기적적인 생애를 관련시키는 전설들로 자신의 인간적 영도자들을 덮어씌움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메우려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 종족들은 자기 영도자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왔다; 그들의 생애는 기적적인 에피소드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집단들 각각은 그들의 재림을 언제나 고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부족민들은 아직도 징기스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과 인도에서는 부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슬람 사람들은 모하메드의 재림을 고대한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예수나인 오나모나론톤의 재림을 기다리고;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통치자로서 아담의 재림을 기다린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아담 전설, 인간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하느님의 아들 개념의 연속으로 마르텍 하느님이 있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로는 소위 하느님의 아들들이 세계 종족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종 사로잡히는 미신적인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이 선생들이, 계시된 진리라는 지렛대들이 인류의 도덕성과 철학과 종교의 진보를 위하여 의존하였던 현세적 개인성 지레받침들이었던 것은 하나의 사실로 남아 있다.

오나가로부터 구루 나낙에 이르기까지 유란시아의 백만 년 인류 역사 속에 수백 명의 종교 영도자들이 있었다. 이 시기 동안에 종교적인 진리와 영적(靈的)인 신앙의 썰물과 밀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유란시아 종교가 부흥되었던 각각의 시기는, 과거에, 어떤 종교적 영도자의 삶과 가르침들과 정체성이 확인되어 왔다. 최근 시대의 선생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아담의-이후 유란시아의 7개 주요 종교 신(新)시대들로 그들을 묶는 것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1. 셋-사람 시대. 아모사드의 지도력 아래에서 다시 탄생되었던, 셋-사람 사제들은, 아담의-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들이 되었다. 그들은 안드-사람들이 차지한 땅 전역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그리스인들과 수메르인들 그리고 힌두인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힌두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힌두 신앙의 브라만들로 계속되고 있다. 셋-사람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아담에 의해서 계시되었던 삼위일체 개념을 전반적으로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시대. 유란시아의 종교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이전 약 2,000년경에 살렘에 살면서 가르쳤을 때 그에게 의해서 임명되었던 그 선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재생되었다. 이 선교사들은 신앙이 하느님의 은혜를 위한 대가라고 선포하였으며, 그들의 가르

without reason; there is an instinctive longing in the heart of evolutionary man for help from above and beyond. This craving is designed to anticipate the appearance on earth of the Planetary Prince and the later Material Sons. On Urantia man has been deprived of these superhuman leaders and rulers, and therefore does he constantly seek to make good this loss by enshrouding his human leaders with legends pertaining to supernatural origins and miraculous careers.

92:5.6 (1008.8) Many races have conceived of their leaders as being born of virgins; their careers are liberally sprinkled with miraculous episodes, and their return is always expected by their respective groups. In central Asia the tribesmen still look for the return of Genghis Khan; in Tibet, China, and India it is Buddha; in Islam it is Mohammed; among the Amerinds it was Hesunanin Onamonalonton; with the Hebrews it was, in general, Adam's return as a material ruler. In Babylon the god Marduk was a perpetuation of the Adam legend, the son-of-God idea, the connecting link between man and God. Following the appearance of Adam on earth, so-called sons of God were common among the world races.

92:5.7 (1009.1) But regardless of the superstitious awe in which they were often held, it remains a fact that these teachers were the temporal personality fulcrums on which the levers of revealed truth depend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morality, philosophy, and religion of mankind.

92:5.8 (1009.2) There have been hundreds upon hundreds of religious leaders in the million-year human history of Urantia from Onagar to Guru Nanak. During this time there have been many ebbs and flows of the tide of religious truth and spiritual faith, and each renaissance of Urantian religion has, in the past, been identified with the life and teachings of some religious leader. In considering the teachers of recent times, it may prove helpful to group them into the seven major religious epochs of post-Adamic Urantia:

92:5.9 (1009.3) 1. *The Sethite period.* The Sethite priests, as regenerated under the leadership of Amosad, became the great post-Adamic teachers. They functioned throughout the lands of the Andites, and their influence persisted longest among the Greeks, Sumerians, and Hindus. Among the latter they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time as the Brahmans of the Hindu faith. The Sethites and their followers never entirely lost the Trinity concept revealed by Adam.

92:5.10 (1009.4) 2. *Era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Urantia religion was in no small measure regenerated by the efforts of those teachers who were commissioned by Machiventa Melchizedek when he lived and taught at Salem almost two thousand years before Christ. These

침들이 비록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종교들의 비생산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후대의 가르침들이 유란시아의 그 종교를 세우게 되는 기초들을 형성하였다.

3. 멜기세덱 이후의 시대. 아메니뎀과 이크나톤 두 사람이 이 기간 동안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종교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레반트의 베도윈 집단의 영도자이며 히브리 종교의 창시자인—모세였다. 모세는 유일신 개념을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느님이신 주님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다.”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기 민족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귀신 예배종파를 뿌리 뽑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하였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모세의 유일신 개념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불순물이 섞이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그의 가르침들 대부분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지혜와 총명함에 있다. 하느님에 대한 더욱 위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진보된 신념들을 채택하도록 그토록 성공적으로 설득한 경우는 없었다.

4. 그리스도 이전 6세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유란시아에서 전에 간증되었던 종교적 각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기들 중의 하나인 이때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고타마,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그리고 자이나교 선생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고타마의 가르침들은 아시아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를 부처로 존경하고 있다. 공자는 중국인에게 도덕성을, 플라톤은 그리스인에게 철학을 제공하였으며, 그 두 사람의 가르침들에게 종교적인 반향이 있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두 사람 모두 종교 선생이 아니었다; 노자(老子)는 인간성에 치중한 공자나 이상주의에 치중한 플라톤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느님의 개념을 도교(道教)에서 나타내었다. 조로아스터는 널리 퍼진 이원적(二元的)인 영성주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시에, 하나의 영원한 신(神)의 관념과 어두움에 대한 빛의 영원한 승리의 관념을 명확하게 강화시켰다.

5.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종교적 선생으로서, 나사렛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예배종파 집단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금식과 형식으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까지 전진하였다. 예수를 제외한다면, 타루수스 바울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생들이었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의 진화 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6. 그리스도 이후 6세기. 모하메드는 그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신조들보다 우월한 하나의 종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종교는 이방인들 신앙들이 사회적 요구 조건들을 배척하고 자기 민족의 종교적인 생활의 모순점을 배척하였다.

missionaries proclaimed faith as the price of favor with God, and their teachings, though unproductive of any immediately appearing religions, nevertheless formed the foundations on which later teachers of truth were to build the religions of Urantia.

92:5.11 (1009.5) 3. *The post-Melchizedek era.* Though Amenemope and Ikhnaton both taught in this period, the outstanding religious genius of the post-Melchizedek era was the leader of a group of Levantine Bedouins and the founder of the Hebrew religion — Moses. Moses taught monotheism. Said he: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God.” “The Lord he is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He persistently sought to uproot the remnants of the ghost cult among his people, even prescribing the death penalty for its practitioners. The monotheism of Moses was adulterated by his successors, but in later times they did return to many of his teachings. The greatness of Moses lies in his wisdom and sagacity. Other men have had greater concepts of God, but no one man was ever so successful in inducing large numbers of people to adopt such advanced beliefs.

92:5.12 (1009.6) 4.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Many men arose to proclaim truth in this, one of the greatest centuries of religious awakening ever witnessed on Urantia. Among these should be recorded Gautama, Confucius, Lao-tse, Zoroaster, and the Jainist teachers. The teachings of Gautama have become widespread in Asia, and he is revered as the Buddha by millions. Confucius was to Chinese morality what Plato was to Greek philosophy, and while there were religious repercussions to the teachings of both, strictly speaking, neither was a religious teacher; Lao-tse envisioned more of God in Tao than did Confucius in humanity or Plato in idealism. Zoroaster, while much affected by the prevalent concept of dual spiritism, the good and the bad, at the same time definitely exalted the idea of one eternal Deity and of the ultimate victory of light over darkness.

92:5.13 (1010.1) 5.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As a religious teacher, Jesus of Nazareth started out with the cult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John the Baptist and progressed as far as he could away from fasts and forms. Aside from Jesus, Paul of Tarsus and Philo of Alexandria were the greatest teachers of this era. Their concepts of religion have played a dominant part in the evolution of that faith which bears the name of Christ.

92:5.14 (1010.2) 6. *The sixth century after Christ.* Mohammed founded a religion which was superior to many of the creeds of his time. His was a protest against the social demands of the faiths of foreigners and against the incoherence of the

7. 그리스도 이후 15세기. 이 기간에는 두 가지 종교 운동이 있었는데: 서방에서의 그리스도교 합일의 붕괴와 동방에서의 새로운 종교의 통합이 그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가, 더욱 증진된 성장과 합일이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부적응성을 이룩하였다. 동방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병합된 교훈들이 나낙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시크교로 합성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종교들 중의 하나였다.

유란시아의 미래는 종교적인 진리—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모든 창조체들의 형제우애관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출현되는 특성을 틀림없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이러한 선지자들의 열렬하고도 진지한 수고가 종교 간의 장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는 덜 지향하고, 사타니아의 유란시아 특징을 이루는, 의견을 달리하는 지적 신학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경배의 종교적인 형제신분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기를 바란다.

제 6 장. 혼성된 종교들

20세기의 유란시아 종교들은 인간의 경배 충동의 사회적 진화에 관한 흥미 있는 견본을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신앙들은 귀신 예배종파의 시대 이후로 거의 진보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들은 그들 중의 일부분이 영적 환경을 미약하게 믿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종교적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오늘날의 상태는 종교의 진화가 시작했을 당시의 원시인의 상태와 똑같다. 원시적인 종교의 기본 신념은 죽음 이후의 생존이었다. 개인적인 하느님을 경배하는 관념은 진보된 진화적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계시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였다. 다야크족은 가장 원시적인 종교적 실천 관행만을 진화시켜 왔다. 비교적 최근에 에스키모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느님에 대한 매우 빈약한 개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귀신들을 믿었고 죽음 이후에 어떤 형태로 생존된다는 불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지금-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어둠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미숙한 조상 숭배 개념만을 갖고 있다. 줄루족들은 이제 막,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제물의 종교가 진화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인들과 마호멧교도들의 선교 활동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들은 종교적 진화에 있어서 주물숭배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들은 유일신론을 오랫동안 간직해 오고 있는데, 한 때 트라키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불멸성을 믿었다.

유란시아에서,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이 글들이 쓰인 시기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화된 신학 체계들 속으로 혼합되고 밀착되는 동시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진보해 나가고 있다.

religious life of his own people.

92:5.15 (1010.3) 7. The fifteenth century after Christ.

This period witnessed two religious movements: the disruption of the unity of Christianity in the Occident and the synthesis of a new religion in the Orient. In Europe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had attained that degree of inelasticity which rendered further growth incompatible with unity. In the Orient the combined teachings of Islam, Hinduism, and Buddhism were synthesized by Nanak and his followers into Sikhism, one of the most advanced religions of Asia.

92:5.16 (1010.4) The future of Urantia will doubtless be

characterized by the appearance of teachers of religious truth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fraternity of all creatures. But it is to be hoped that the ardent and sincere efforts of these future prophets will be directed less toward the strengthening of interreligious barriers and more toward the augmentation of the religious brotherhood of spiritual worship among the many followers of the differing intellectual theologies which so characterize Urantia of Satania.

6. THE COMPOSITE RELIGIONS

92:6.1 (1010.5) Twentieth-century Urantia religions

present an interesting study of the social evolution of man's worship impulse. Many faiths have progressed very little since the days of the ghost cult. The Pygmies of Africa have no religious reactions as a class, although some of them believe slightly in a spirit environment. They are today just where primitive man was when the evolution of religion began. The basic belief of primitive religion was survival after death. The idea of worshiping a personal God indicates advanced evolutionary development, even the first stage of revelation. The Dyaks have evolved only the most primitive religious practices. The comparatively recent Eskimos and Amerinds had very meager concepts of God; they believed in ghosts and had an indefinite idea of survival of some sort after death. Present-day native Australians have only a ghost fear, dread of the dark, and a crude ancestor veneration. The Zulus are just evolving a religion of ghost fear and sacrifice. Many African tribes, except through missionary work of Christians and Mohammedans, are not yet beyond the fetish stage of religious evolution. But some groups have long held to the idea of monotheism, like the onetime Thracians, who also believed in immortality.

92:6.2 (1010.6) On Urantia, evolutionary and

revelatory religion are progressing side by side while they blend and coalesce into the diversified theologic systems found in the world in the times

이러한 종교들,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1. 힌두교—가장 오래되었음
2. 히브리 종교
3. 불교
4. 공자의 가르침
5. 도교의 신념
6. 조로아스터교
7. 신교
8. 자이나교
9. 그리스도교
- 10 이슬람교
- 11 시크교—가장 최근

고대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종교들은 유대교와 힌두교였으며, 그 각각은 동방과 서방에 있어서의 종교 발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왔다. 힌두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종교만이 영감과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으며,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참된 신앙에서 타락한 형태들이라고 믿었다.

인도는 힌두교와 시크교와 마호멧교 그리고 자이나교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각각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하여 가지각색으로 이해하여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도교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교는 일본에서 존경되고 있다.

국제적인, 여러 종족들이 따르는 위대한 신앙들은 히브리 종교, 불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이다. 불교는 실론과 버마로부터 뻗어나가 티베트와 중국을 통하여 일본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만이 그에 맞먹을 만한 특성을 보인 것처럼, 많은 민족들의 사회관례에 대한 적응성을 보여 왔다.

히브리 종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유일신교로 바뀌는 철학적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진화 종교들과 계시 종교들 사이를 진화적으로 연결해 준다. 히브리인들은, 초기의 진화적인 하느님들을 따르다가 계시의 하느님을 직접 받아들이게 된 유일한 서양 민족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 사야의 시대 전에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 그는 우주적 창조자 관념이 섞인 인종적 신(神)을 다시 한 번 가르쳤다. “오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여,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며;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살아남은 서방 문명의 희망은 한 때 선(善)에 대한 숭고한 히브리 개념들과 미(美)에 대한 진보된 헬라 개념들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들과 일생에 관한 종교인데, 유대교 신학에 기초를 두었고,

of the inditement of these papers. These religions, the religions of twentieth-century Urantia, may be enumerated as follows:

- 92:6.3 (1011.1) 1. Hinduism — the most ancient.
- 92:6.4 (1011.2) 2. The Hebrew religion.
- 92:6.5 (1011.3) 3. Buddhism.
- 92:6.6 (1011.4) 4. The Confucian teachings.
- 92:6.7 (1011.5) 5. The Taoist beliefs.
- 92:6.8 (1011.6) 6. Zoroastrianism.
- 92:6.9 (1011.7) 7. Shinto.
- 92:6.10 (1011.8) 8. Jainism.
- 92:6.11 (1011.9) 9. Christianity.
- 92:6.12 (1011.10) 10. Islam.
- 92:6.13 (1011.11) 11. Sikhism — the most recent.

92:6.14 (1011.12) The most advanced religions of ancient times were Judaism and Hinduism, and each respectively has greatly influenced the course of religious development in Orient and Occident. Both Hindus and Hebrews believed that their religions were inspired and revealed, and they believed all others to be decadent forms of the one true faith.

92:6.15 (1011.13) India is divided among Hindu, Sikh, Mohammedan, and Jain, each picturing God, man, and the universe as these are variously conceived. China follows the Taoist and the Confucian teachings; Shinto is revered in Japan.

92:6.16 (1011.14) The great international, interracial faiths are the Hebraic, Buddhist, Christian, and Islamic. Buddhism stretches from Ceylon and Burma through Tibet and China to Japan. It has shown an adaptability to the mores of many peoples that has been equaled only by Christianity.

92:6.17 (1011.15) The Hebrew religion encompasses the philosophic transition from polytheism to monotheism; it is an evolutionary link between the religions of evolution and the religions of revelation. The Hebrews were the only western people to follow their early evolutionary gods straight through to the God of revelation. But this truth never became widely accepted until the days of Isaiah, who once again taught the blended idea of a racial deity combined with a Universal Creator: “O Lord of Hosts, God of Israel, you are God, even you alone; you have made heaven and earth.” At one time the hope of the survival of Occidental civilization lay in the sublime Hebraic concepts of goodness and the advanced Hellenic concepts of beauty.

92:6.18 (1011.16) The Christian religion is the religion about the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based upon

특정한 조로아스터 가르침들과 그리스 철학에 융화되어 더욱 변경되고, 세 사람들 즉: 필로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조직화되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 이후로 여러 진화 위상을 거쳐 왔으며 너무도 철저히 서방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非)유럽인 민족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를 낳신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낳신 자들에 대한 이상한 계시로 간주하였다.

이슬람은 북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 그리고 남동부 아시아의 종교-문화적 연결고리이다. 이슬람을 유일신교로 만든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가르침들과 관련된 유대교 신학이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진보된 가르침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세 가지의 신성한 개인성과 하나의 신(神)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진화적인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진보되고 계시된 진리를 갑자기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진화적인 창조체며 대체적으로 진화적인 기법에 의해서 자기 종교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상 경배는 한때 종교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기여하였지만, 불교와 힌두교처럼 상대적으로 진보된 종교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시적인 개념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에 그렇게 많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고도 그리고 딱한 일이다. 서방에서는 조상경배가 발전하여 민족적인 하느님들에 대한 숭배와 민족적인 영웅들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영웅을 숭배하는 이러한 국가적 종교는 서방의 여러 종족들과 국가들의 특징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속주의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이와 동일한 태도 역시 영어를 언어로 갖는 민족들의 큰 대학들과 보다 넓은 산업 공동체 속에서 발견된다. 종교가 “함께 추구하는 유익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은 이러한 개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가적인 종교들”은 황제를 경배하던 옛 로마인들과 신교-황제 가족에 대한 국가적 경배-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 7 장. 종교의 계속적인 진화

종교는 결코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 철학은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교는 오늘날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진화적 또는 계시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병합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종교는 창안될 수 없다; 그들은 진화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계시된다. 모든 새로운 진화 종교들은 단순히 옛 신념들에 대한 진보된 표현들, 새로운 적응과 조절에 불과하다. 옛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융합되는데, 심지어는 시크교조차도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the theology of Judaism, modified further through the assimilation of certain Zoroastrian teachings and Greek philosophy, and formulated primarily by three individuals: Philo, Peter, and Paul. It has passed through many phases of evolution since the time of Paul and has become so thoroughly Occidentalized that many non-European peoples very naturally look upon Christianity as a strange revelation of a strange God and for strangers.

92:6.19 (1011.17) Islam is the religio-cultural connective of North Africa, the Levant, and southeastern Asia. It was Jewish theology in connection with the later Christian teachings that made Islam monotheistic. The followers of Mohammed stumbled at the advanced teachings of the Trinity;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doctrine of three divine personalities and one Deity. It is always difficult to induce evolutionary minds *suddenly* to accept advanced revealed truth. Man is an evolutionary creature and in the main must get his religion by evolutionary techniques.

92:6.20 (1012.1) Ancestor worship onetime constituted a decided advance in religious evolution, but it is both amazing and regrettable that this primitive concept persists in China, Japan, and India amidst so much that is relatively more advanced, such as Buddhism and Hinduism. In the Occident, ancestor worship developed into the veneration of national gods and respect for racial hero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hero-venerating nationalistic religion makes its appearance in the various radical and nationalistic secularisms which characterize many races and nations of the Occident. Much of this same attitude is also found in the great universities and the larger industrial communities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 Not very different from these concepts is the idea that religion is but “a shared quest of the good life.” The “national religions” are nothing more than a reversion to the early Roman emperor worship and to Shinto — worship of the state in the imperial family.

7. THE FURTHER EVOLUTION OF RELIGION

92:7.1 (1012.2) Religion can never become a scientific fact. Philosophy may, indeed, rest on a scientific basis, but religion will ever remain either evolutionary or revelatory, or a possible combination of both, as it is in the world today.

92:7.2 (1012.3) New religions cannot be invented; they are either evolved, or else they are *suddenly revealed*. All new evolutionary religions are merely advancing expressions of the old beliefs, new adaptations and adjustments. The old does not cease to exist; it is merged with the new, even as

그리고 다른 동시대적(同時代的) 예배종파들의 토양과 형태들로부터 싹이 텄고 꽃이 피었던 것이다. 원시적인 종교는 매우 민주적이었다; 미개인들은 빌려주기와 빌리기를 잘하였다. 오직 계시된 종교만이 독재적이었고 편협한 신학적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종교들 대부분은 사람을 하나님에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실현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데에 모두 다 좋다. 어떤 종교가의 집단이라도 자기들의 교리만이 진리라고 착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태도들은 신앙적인 확실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인 오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모든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최고의 진리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흡수하지 못할 유란시아 종교는 하나도 없는 데,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들은 자기 이웃들의 질질 끌려오는 맹신과 케케묵은 예식에 있는 가장 나쁜 것을 혈투기보다는 자기 이웃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빌려온다면 아마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동등한 영적 인도에 대한 그의 다양한 지적 반응의 결과로 발생되어 왔다. 그것들은 교리, 독단론 그리고 예식들의 획일성을 달성할 희망이 전혀 없다.—이들은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께 대한 참된 경배 속에서 합일을 실현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영 안에서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이 언제나 지나 참말이기 때문이다.

원시적인 종교는 주로 물질적인 가치를 인식하지만; 문명이 종교적 가치들을 증진시켰는데, 왜냐하면 참된 종교는 의미 있고 그리고 최극 가치들의 봉사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도덕의 철학이 되고, 도덕성은 최고의 의미들과 최극의 가치들—거룩하고 영적인 이상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아의 단련이 된다. 그리하여 종교는 자발적이고 정교한 헌신, 사랑의 충성심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된다.

종교의 본질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

1. 가치에서의 단계—충성심.
2. 의미의 깊이—이러한 최고의 가치들의 이상주의적인 진가에 대한 개별존재의 민감성.
3. 헌신의 강도—이러한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헌신의 정도.
4. 이상주의적인 영적 생활의 이러한 조화 우주 경로 속에서 개인성의 속박 받지 않는 진보, 하나님의 아들관계의 실현과 우주 속에서 끝없이 진보하는 시민의 자적.

종교적인 의미들은 자녀가 전능(全能)함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자기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자아-의식 속에서 진보를 이룩한다. 그리고

Sikhism budded and blossomed out of the soil and forms of Hinduism, Buddhism, Islam, and other contemporary cults. Primitive religion was very democratic; the savage was quick to borrow or lend. Only with revealed religion did autocratic and intolerant theologic egotism appear.

92:7.3 (1012.4) The many religions of Urantia are all good to the extent that they bring man to God and bring the realization of the Father to man. It is a fallacy for any group of religionists to conceive of their creed as *The Truth*; such attitudes bespeak more of theological arrogance than of certainty of faith. There is not a Urantia religion that could not profitably study and assimilate the best of the truths contained in every other faith, for all contain truth. Religionists would do better to borrow the best in their neighbors' living spiritual faith rather than to denounce the worst in their lingering superstitions and outworn rituals.

92:7.4 (1012.5) All these religions have arisen as a result of man's variable intellectual response to his identical spiritual leading. They can never hope to attain a uniformity of creeds, dogmas, and rituals — these are intellectual; but they can, and some day will, realize a unity in true worship of the Father of all, for this is spiritual, and it is forever true, in the spirit all men are equal.

92:7.5 (1012.6) Primitive religion was largely a material-value consciousness, but civilization elevates religious values, for true religion is the devotion of the self to the service of meaningful and supreme values. As religion evolves, ethics becomes the philosophy of morals, and morality becomes the discipline of self by the standards of highest meanings and supreme values — divine and spiritual ideals. And thus religion becomes a spontaneous and exquisite devotio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loyalty of love.

92:7.6 (1013.1) The quality of a religion is indicated by:

92:7.7 (1013.2) 1. Level of values — loyalties.

92:7.8 (1013.3) 2. Depth of meanings — the sensitization of the individual to the idealistic appreciation of these highest values.

92:7.9 (1013.4) 3. Consecration intensity — the degree of devotion to these divine values.

92:7.10 (1013.5) 4. The unfettered progress of the personality in this cosmic path of idealistic spiritual living,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and never-ending progressive citizenship in the universe.

92:7.11 (1013.6) Religious meanings progress in self-consciousness when the child transfers his ideas of omnipotence from his parents to God. And the

그러한 자녀의 종교적인 체험 전체는 주로 두려움 또는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부모-자식 관계를 지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예들은 주인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사랑의 개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항상 체험한다. 문명과 과학 그리고 진보된 종교들은 자연 현상들에 대한 공포심에서 발생한 이러한 두려움들로부터 인류를 구출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더욱 확대된 깨우침이, 신(神)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간 매개물에 의존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교양 있는 인간들을 구출해 내야만 한다.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신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숭배를 전환함에 있어서, 우상숭배로 머뭇거리는 이들 중간 단계들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내주 하는 신성한 영의 도와주는 사명활동을 인식함으로써 단축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神)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존경하기로 선택한 영웅들의 성격에 의해서도 깊이 영향을 받아 왔다. 거룩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씩씩하고 용기가 넘치는 그 영웅—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을 놓치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애석한 일이다.

현대인은 종교에 대해 충분히 자아-의식적이지만, 사회적 변형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전례 없는 과학적 발전 때문에 그의 경배 관습은 혼란을 겪고 불신하게 되었다. 생각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종교가 재(再)규명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종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재(再)-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현대인은 2천 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인간 가치들에 대한 재조절을 한 세대 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과제와 마주쳤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종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종교가 생각하는 기법일 뿐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된 종교는 언제까지나, 한 시기에 그리고 동시에, 지속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영원한 기초이자 안내하는 별이 되어야만 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entire religious experience of such a child is largely dependent on whether fear or love has dominate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laves have always experienced great difficulty in transferring their master-fear into concepts of God-love. Civilization, science, and advanced religions must deliver mankind from those fears born of the dread of natural phenomena. And so should greater enlightenment deliver educated mortals from all dependence on intermediaries in communion with Deity.

92:7.12 (1013.7) These intermediate stages of idolatrous hesitation in the transfer of veneration from the human and the visible to the divine and invisible are inevitable, but they should be shortened by the consciousness of the facilitating ministry of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Nevertheless, man has been profoundly influenced, not only by his concepts of Deity, but also by the character of the heroes whom he has chosen to honor. It is most unfortunate that those who have come to venerate the divine and risen Christ should have overlooked the man — the valiant and courageous hero — Joshua ben Joseph.

92:7.13 (1013.8) Modern man is adequately self-conscious of religion, but his worshipful customs are confused and discredited by his accelerated social metamorphosis and unprecedented scientific developments. Thinking men and women want religion redefined, and this demand will compel religion to re-evaluate itself.

92:7.14 (1013.9) Modern man is confronted with the task of making more readjustments of human values in one generation than have been made in two thousand years. And this all influences the social attitude toward religion, for religion is a way of living as well as a technique of thinking.

92:7.15 (1013.10) True religion must ever be,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eternal foundation and the guiding star of all enduring civilizations.

92:7.16 (1013.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3 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 092

유랜시아 책

09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3 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색션

소개

제 1 장. 마키벤타의 육신화

제 2 장. 살렘의 현인(賢人)

제 3 장. 멜기세덱의 가르침

제 4 장. 살렘의 종교

제 5 장. 아브라함의 선택

제 6 장.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

제 7 장. 멜기세덱 선교사들

제 8 장. 멜기세덱이 떠남

제 9 장. 멜기세덱이 떠난 이후

제 10 장.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PAPER 93

MACHIVENTA MELCHIZEDEK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achiventa Incarnation

2. The Sage of Salem

3. Melchizedek's Teachings

4. The Salem Religion

5. The Selection of Abraham

6.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7.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8. Departure of Melchizedek

9. After Melchizedek's Departure

10. Present Status of Machiventa Melchizedek

소개

멜기세덱들은 응급조치를 위한 아들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역우주의 세계들에서 놀랄만한 범위의 활동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든지, 또는 유별난 어떤 것이 시도될 때, 멜기세덱에게 그 일이 배정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있다. 비상사태들의 경우에 그리고 그 우주의 매우 다양한 차원들에서, 심지어는 개인성 현시활동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기능하는 멜기세덱 아들들의 능력은 그들의 계층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다. 오직 생명운반자들만이 개인성 기능의 이러한 변형 범위를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우주적인 아들관계인 멜기세덱 계층은 유랜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인 것이었다. 12명의 단체가 생명운반자들과 함께 연관하여 봉사하였다. 후대의 12인 단체는 너희가 사는 세계가 칼리가스티아 때문에 분리된 직후에 그 접수자가 되었고 아담과 이브의 시대가 이를 때까지 계속 권한을 행사하였다. 12명의 이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가 불이 행하였을 때 유랜시아로 되돌아왔으며, 나사렛 예

INTRODUCTION

93:0.1 (1014.1) THE Melchizedeks are widely known as emergency Sons, for they engage in an amazing range of activities on the worlds of a local universe. When any extraordinary problem arises, or when something unusual is to be attempted, it is quite often a Melchizedek who accepts the assignment. The ability of the Melchizedek Sons to function in emergencies and on widely divergent levels of the universe, even on the physical level of personality manifestation, is peculiar to their order. Only the Life Carriers share to any degree this metamorphic range of personality function.

93:0.2 (1014.2) The Melchizedek order of universe sonship has been exceedingly active on Urantia. A corps of twelve served in conjunction with the Life Carriers. A later corps of twelve became receivers for your world shortly after the Caligastia secession and continued in authority until the time of Adam and Eve. These twelve Melchizedeks returned to Urantia upon the default of Adam and

수가 사람의 아들이로서 유란시아의 명목상 행성영주가 된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 계속 행성접수자들로 활동하였다.

Eve, and they continued thereafter as planetary receivers on down to the day when Jesus of Nazareth, as the Son of Man, became the titular Planetary Prince of Urantia.

제 1 장. 마키벤타의 육신화

게시된 진리는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임무가 실패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소멸될 위협을 받았다. 지적으로는 진보를 이룩하였지만, 인간 종족들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다. 기원 전 약 3,000년경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희미하게 성장했었다.

12명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자기들의 행성에 미가엘의 증여가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빨리 그 일이 발생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대한 혐의회를 소집하였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진리의 빛을 유란시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청원은 “사타니아의 606번에 있는 관련자들의 수행은 멜기세덱 보호관리자들의 손에 충분히 위탁되었다”는 명령과 함께 기각되었다. 그러자 그 접수자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그 행성의 소유권을 상실된 상태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출하게 될” “증여될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수호해야만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12명의 행성 접수자들 중의 하나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전체 역사상 6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지구에서 영역의 한 현세적 사람으로 개인성구현하는, 세계적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응급조치를 위한 아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자진해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도 완벽하게 그들 자신의 자원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험에 대한 허락이 구원자별의 권한자들에 의해 내려졌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제적인 육신화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살렘이라는 도시가 된 장소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화되는 전체 활동행위는 생명운반자들과 특정한 주(主)물리통제자들 그리고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천상(天上)의 개인성들의 협조와 함께 행성 접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제 2 장. 살렘의 현인(賢人)

마키벤타가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보다 1,973년 전이었다. 그의 출현은 돌보일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물질화 과정은 인간들의 눈에 목격되지 않았다. 그사건 많은 날에 그가 필사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수메르 혈통을 가졌고 갈대아의 양치기인 암돈의 천막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였다.

1. THE MACHIVENTA INCARNATION

93:1.1 (1014.3) Revealed truth was threatened with extinction during the millenniums which followed the miscarriage of the Adamic mission on Urantia. Though making progress intellectually, the human races were slowly losing ground spiritually. About 3000 B.C. the concept of God had grown very hazy in the minds of men.

93:1.2 (1014.4)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knew of Michael's impending bestowal on their planet, but they did not know how soon it would occur; therefore they convened in solemn council and petitioned the Most Highs of Edentia that some provision be made for maintaining the light of truth on Urantia. This plea was dismissed with the mandate that “the conduct of affairs on 606 of Satania is fully in the hands of the Melchizedek custodians.” The receivers then appealed to the Father Melchizedek for help but only received wor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uphold truth in the manner of their own election “until the arrival of a bestowal Son,” who “would rescue the planetary titles from forfeiture and uncertainty.”

93:1.3 (1014.5) And it was in consequence of having been thrown so completely on their own resources that Machiventa Melchizedek, one of the twelve planetary receivers, volunteered to do that which had been done only six times in all the history of Nebadon: to personalize on earth as a temporary man of the realm, to bestow himself as an emergency Son of world ministry. Permission was granted for this adventure by the Salvington authorities, and the actual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was consummated near what was to become the city of Salem, in Palestine. The entire transaction of the materialization of this Melchizedek Son was completed by the planetary receiver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ife Carriers, certain of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other celestial personalities resident on Urantia.

2. THE SAGE OF SALEM

93:2.1 (1015.1) It was 1,973 years before the birth of Jesus that Machiventa was bestowed upon the human races of Urantia. His coming was unspectacular; his materialization was not witnessed by human eyes. He was first observed by mortal man on that eventful day when he entered the tent of Amdon, a Chaldean herder of Sumerian extraction. And the proclamation of his

그리고 그의 임무에 대한 선포는 그가 이 목동에게 하였던,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한 분뿐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다.”라는 간단한 한 마디 안에 체현되었다.

놀랐던 그 양치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리고 그가 이 낯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퍼부은 후에, 그는 멜기세덱에게 같이 식사를 하라고 권하였으며, 이것은 마키벤타가 자신의 긴 우주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물질적인 음식을 먹은 순간이었고 그 음식물은 물질적인 존재로 있었던 94년 동안의 삶 동안 그를 지탱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날 밤에, 그들이 별 빛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멜기세덱은 하느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자신의 임무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자기 손을 털면서 암돈에게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은 창공에 있는 별들의 신성한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도 지으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시는 최극 하느님이시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살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핵심이 될 학생들과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한 집단을 자기 주변에 모아들였다. 그는 곧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살렘의 현자로 팔레스타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 일부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가 종종 살렘의 왕 또는 족장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여부스 족속의 도시가 된 장소였으며, 그 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개인적 외모에서, 멜기세덱은 그 당시의 낯사람과 수메르인이 섞인 형태를 닮았는데, 키는 거의 6피트에 달하였고 당당한 현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갈대아 말을 하였고 6가지의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였다. 그의 복장은 가나안-사람의 사제들과 거의 흡사하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사타니아의 상징인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그의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명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세 개의 동심원 모양의 이 표시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히게 되었다.

비록 마키벤타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는 하였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자손을 남겨둘 수도 없었다. 그의 육신적인 몸은, 남자의 모습을 닮은 반면, 실체 안에서는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되었던 100명의 요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특별히 구성된 육신들의 계층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제외한다면 인간 종족의 생명 원형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키벤타가 지구상에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었다면, 그의 육체적인 기능구조는 점차적으로 저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그는 자신의 물질적 몸에 집대성-해체가 시작되었기 훨씬 전인 94세의 나이에 자신의 증여 임무를 마무리하였다.

mission was embodied in the simple statement which he made to this shepherd, “I am Melchizedek,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the one and only God.”

93:2.2 (1015.2) When the herder had recovered from his astonishment, and after he had plied this stranger with many questions, he asked Melchizedek to sup with him, and this was the first time in his long universe career that Machiventa had partaken of material food, the nourishment which was to sustain him throughout his ninety-four years of life as a material being.

93:2.3 (1015.3) And that night, as they talked out under the stars, Melchizedek began his mission of the revelation of the truth of the reality of God when, with a sweep of his arm, he turned to Amdon, saying, “El Elyon, the Most High, is the divine creator of the stars of the firmament and even of this very earth on which we live, and he is also the supreme God of heaven.”

93:2.4 (1015.4) Within a few years Melchizedek had gathered around himself a group of pupils, disciples, and believers who formed the nucleus of the later community of Salem. He was soon known throughout Palestine as the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and as the sage of Salem. Among some of the surrounding tribes he was often referred to as the sheik, or king, of Salem. Salem was the site which after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became the city of Jebus, subsequently being called Jerusalem.

93:2.5 (1015.5) In personal appearance, Melchizedek resembled the then blended Nodite and Sumerian peoples, being almost six feet in height and possessing a commanding presence. He spoke Chaldean and a half dozen other languages. He dressed much as did the Canaanite priests except that on his breast he wore an emblem of three concentric circles, the Satania symbol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 course of his ministry this insignia of three concentric circles became regarded as so sacred by his followers that they never dared to use it, and it was soon forgotten with the passing of a few generations.

93:2.6 (1015.6) Though Machiventa lived after the manner of the men of the realm, he never married, nor could he have left offspring on earth. His physical body, while resembling that of the human male, was in reality on the order of those especially constructed bodies used by the one hundred materialized members of Prince Caligastia's staff except that it did not carry the life plasm of any human race. Nor was there available on Urantia the tree of life. Had Machiventa remained for any long period on earth, his physical mechanism would have gradually deteriorated; as it was, he terminated his bestowal mission in ninety-four years long before his material body had begun to disintegrate.

육신화된 이 멜기세덱은, 육신의 조인자이자 시간의 감시자로서 그의 초인간적 개인성에 내주 하였던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였는데, 조절자는 그리하여 유란시아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간 마음속에서 매우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육신화된 아들 속에 내주하는 그 기술에 대하여 그 체험과 실천적인 개괄적 해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 생각 조절자는 유란시아에서 두 마음 속에서 기능하였던 유일한 조절자였지만, 두 마음은 모두 신성이자 동시에 또한 인간적이었다.

그 육신 속에 육신화 되어 있는 동안, 마키벤타는 행성 보호관리자 무리단인 11명의 자기 동료들과 충분한 접촉을 이루고 있었지만,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개인성들과는 교통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을 제외하고는, 인간 이외의 초인간적인 지능 존재들과 더 이상 접촉할 수 없었다.

제 3 장. 멜기세덱의 가르침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에 자신의 학교들을 조직하였는데, 두 번째 에덴에 있었던 초기 셋-사람 사제들에 의해 개발되었었던 옛 체계를 본떠서 그것들을 만들었다. 나중에 그에게 귀의한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채용되었던 십일조 체계 역시 고대의 셋-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유지한 전통적 방법에서 유래되었다.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느님, 하나의 우주적 신(神)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침을 자신이 엘 엘리온—지고자—이라고 불렀던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와 연관시키도록 허용하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상태와 에루셈에서의 관련자들의 상태에 관하여는 거의 침묵을 지켰다.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는 미가엘의 증여가 완료될 때까지 유란시아에 대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살렘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에덴시아가 천국이었고 지고자가 하느님이었다.

멜기세덱이 자신의 증여에 대한 표지로 채택하였던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왕국, 천사들의 왕국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신념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되었는데; 그의 추종자들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세 개의 원들이 신성한 보존과 지도를 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무한성과 영원 그리고 보편성에 대한 상징적인 것임을 알았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세 지고자들이 하나로 기능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에 따라, 이 형상이 에덴시아의 세 지고자들을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멜기세덱이 삼위일체 개념을 자신의 표지를 통하여 가르친 점에 있어서, 그는 대개 그것을 놀라시아텍의 별자리에 대한 세 명의 보론다텍 통치자들과 연관시켰다.

93:2.7 (1016.1) This incarnated Melchizedek received a Thought Adjuster, who indwelt his superhuman personality as the monitor of time and the mentor of the flesh, thus gaining that experience and practical introduction to Urantian problems and to the technique of indwelling an incarnated Son which enabled this spirit of the Father to function so valiantly in the human mind of the later Son of God,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is is the only Thought Adjuster who ever functioned in two minds on Urantia, but both minds were divine as well as human.

93:2.8 (1016.2) During the incarnation in the flesh, Machiventa was in full contact with his eleven fellows of the corps of planetary custodians, but he could not communicate with other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ide from the Melchizedek receivers, he had no more contact with superhuman intelligences than a human being.

3. MELCHIZEDEK'S TEACHINGS

93:3.1 (1016.3) With the passing of a decade, Melchizedek organized his schools at Salem, patterning them on the olden system which had been developed by the early Sethite priests of the second Eden. Even the idea of a tith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by his later convert Abraham, was also derived from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methods of the ancient Sethites.

93:3.2 (1016.4) Melchizedek taught the concept of one God, a universal Deity, but he allowed the people to associate this teaching with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whom he termed El Elyon — the Most High. Melchizedek remained all but silent as to the status of Lucifer and the state of affairs on Jerusem.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had little to do with Urantia until after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To a majority of the Salem students Edentia was heaven and the Most High was God.

93:3.3 (1016.5) The symbol of the three concentric circles, which Melchizedek adopted as the insignia of his bestowal, a majority of the people interpreted as standing for the three kingdoms of men, angels, and God. And they were allowed to continue in that belief; very few of his followers ever knew that these three circles were emblematic of the infinity, eternity, and universality of the Paradise Trinity of divine maintenance and direction; even Abraham rather regarded this symbol as standing for the three Most Highs of Edentia, as he had been instructed that the three Most Highs functioned as one. To the extent that Melchizedek taught the Trinity concept symbolized in his insignia, he usually associated it with the three Vorondadek rulers of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자신의 추종자 대열에게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유란시아의 하느님들—의 주권관계의 사실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이 깊은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지역우주의 처리행위와 조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반면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의 뛰어난 제자 켄-사람 노르단과 일단(團)의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초우주와 하보나까지 포함하여 진리를 가르쳤다.

멜기세덱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살았던 카트로 집안의 가족들은 이러한 높은 진리들 대부분을 알았으며 자기 가족들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였는데, 그들의 걸출한 후손인 모세의 시대까지도 유지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멜기세덱 시대의 활기에 넘치는 전통을 아버지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혈통에서도 다른 근원들을 통하여 전해 받았다.

멜기세덱은 자기 추종자들이 받아들여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심지어는 하늘과 땅에 관한, 사람과 하느님과 천사들에 관한 현대 종교들의 관념들 대부분도 이러한 멜기세덱의 가르침들로부터 크게 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이 선생은 유일하신 하느님, 하나의 우주적인 신(神),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창조자, 한 분뿐이신 신성한 아버지께 대한 교리에 모든 것들을 종속시켰다. 동일한 이 우주 아버지의 아들이자 미가엘이 나중에 출현하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사람의 갈망을 유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 가르침의 강조점을 두었다.

멜기세덱은 자신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느 날에 다른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도래할 것이지만, 그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로 인하여 수많은 후대의 선생들은 예수가 하나의 사제 또는 성직자, “멜기세덱의 계승을 언제까지나 따르는 자”였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그 길을 예비하였고, 유일하신 하느님의 실제적인 파라다이스 아들의 증여를 위해 세계적인 경향이 유일신 론으로 흐르는 무대를 설치하였는데, 그는 그를 모든 존재의 아버지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의 단순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용납하고자 하는 하느님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멜기세덱이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관하여 가르쳤던 모든 것을 확증하셨다.

제 4 장. 살렘의 종교

살렘에서 행해진 경배 형태는 매우 단순하였다. 멜기세덱 교회의 진흥으로 만든 명부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신조를 암기하고 동의하였다:

1. 나는 지고자 하느님이시고, 유일하신 우주

93:3.4 (1016.6) To the rank and file of his followers he made no effort to present teaching beyond the fact of the rulership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 Gods of Urantia. But to some, Melchizedek taught advanced truth, embracing the conduct and organization of the local universe, while to his brilliant disciple Nordan the Kenite and his band of earnest students he taught the truths of the superuniverse and even of Havona.

93:3.5 (1016.7)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Katro, with whom Melchizedek lived for more than thirty years, knew many of these higher truths and long perpetuated them in their family, even to the days of their illustrious descendant Moses, who thus had a compelling tradition of the days of Melchizedek handed down to him on this, his father's side, as well as through other sources on his mother's side.

93:3.6 (1016.8) Melchizedek taught his followers all they had capacity to receive and assimilate. Even many modern religious ideas about heaven and earth, of man, God, and angels, are not far removed from these teachings of Melchizedek. But this great teacher subordinated everything to the doctrine of one God, a universe Deity, a heavenly Creator, a divine Father. Emphasis was placed upon this teaching for the purpose of appealing to man's adoration and of preparing the way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ichael as the Son of this same Universal Father.

93:3.7 (1017.1) Melchizedek taught that at some future time another Son of God would come in the flesh as he had come, but that he would be born of a woman; and that is why numerous later teachers held that Jesus was a priest, or minister,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93:3.8 (1017.2) And thus did Melchizedek prepare the way and set the monotheistic stage of world tendency for the bestowal of an actual Paradise Son of the one God, whom he so vividly portrayed as the Father of all, and whom he represented to Abraham as a God who would accept man on the simple terms of personal faith. And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confirmed all that Melchizedek had taught concerning the Paradise Father.

4. THE SALEM RELIGION

93:4.1 (1017.3) The ceremonies of the Salem worship were very simple. Every person who signed or marked the clay-tablet rolls of the Melchizedek church committed to memory, and subscribed to, the following belief:

- 93:4.2 (1017.4) 1. I believe in El Elyon, the Most High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신 엘 엘리온을 믿는다.

2. 나는 희생 제물과 불에 태운 제물 위에가 아니라 나의 신앙 위에 하느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지고자와의 멜기세덱 서약을 받아들인다.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할 것과, 지고자와 맺은 이 서약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것이 살렘 거류민단의 전체 신조였다. 그러나 그러한 짧고도 단순한 신앙의 선언조차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앞선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고—신앙에 의해—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들은 사람이 하느님들에게 몰수 처분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도 진지하게 사제들에게 희생제물과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구원, 신성한 은혜가 멜기세덱 서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복된 소식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정의로움으로 여겨졌다”.

멜기세덱에 의해서 공포되었던 일곱 계명들은 고대의 달라마시아 최극 법 계통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덴에서 가르쳤던 일곱 가지 명령들과도 매우 흡사하였다. 살렘 종교의 이 명령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자 창조자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섬기지 마라.

2.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직 신앙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3.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4. 살인하지 마라.

5. 훔치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너희 부모와 어른들을 경멸하지 마라.

그 거류민단 안에서는 어떤 희생제물도 허용되지 않은 반면, 멜기세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립되어 온 관습들을 갑자기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으며, 따라서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제공하던 옛 방법 대신에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로 대체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제시하였었다.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한 혁신조차도 전혀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러 부족들은 모두 살렘 외곽 지역에 보조 중심지들을 유지하면서 그 곳에서 희생제물과 불에 태우는 헌정을 제공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크돌라오멜을 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러한 야만적인 실천 관행에 의지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희생제물을 바

God, the only Universal Father and Creator of all things.

93:4.3 (1017.5) 2. I accept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the Most High, which bestows the favor of God on my faith, not on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93:4.4 (1017.6) 3. I promise to obey the seven commandments of Melchizedek and to tell the good news of this covenant with the Most High to all men.

93:4.5 (1017.7) And that was the whole of the creed of the Salem colony. But even such a short and simple declaration of faith was altogether too much and too advanced for the men of those days. They simply could not grasp the idea of getting divine favor for nothing — by faith. They were too deeply confirmed in the belief that man was born under forfeit to the gods. Too long and too earnestly had they sacrificed and made gifts to the priests to be able to comprehend the good news that salvation, divine favor, was a free gift to all who would believe in the Melchizedek covenant. But Abraham did believe halfheartedly, and even that was “counted for righteousness.”

93:4.6 (1017.8) The seven commandments promulgated by Melchizedek were patterned along the lines of the ancient Dalamatian supreme law and very much resembled the seven commands taught in the first and second Edens. These commands of the Salem religion were:

93:4.7 (1017.9) 1. You shall not serve any God but the Most High Creator of heaven and earth.

93:4.8 (1017.10) 2. You shall not doubt that faith is the only requirement for eternal salvation.

93:4.9 (1017.11) 3.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93:4.10 (1017.12) 4. You shall not kill.

93:4.11 (1017.13) 5. You shall not steal.

93:4.12 (1018.1) 6.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93:4.13 (1018.2) 7. You shall not show disrespect for your parents and elders.

93:4.14 (1018.3) While no sacrifices were permitted within the colony, Melchizedek well knew how difficult it is to suddenly uproot long-established customs and accordingly had wisely offered these people the substitute of a sacrament of bread and wine for the older sacrifice of flesh and blood. It is of recor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forth bread and wine.” But even this cautious innovation was not altogether successful; the various tribes all maintained auxiliary centers on the outskirts of Salem where they offered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Even Abraham resorted to this barbarous practice after his victory over Chedorlaomer; he simply did not feel quite at

칠 때까지는 전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자신의 추종자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종교적 실천 관행으로부터도,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이러한 성향을 충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자신이 중여된 임무의 완수에 철저하게 몰두하였다. 그는 사회관례를 재구성하거나 세상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보된 위생적 실천 관행들이나 과학적 진리들도 세상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은 두 가지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서 계속 살리는 것과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나중에 필사 존재로 증여되게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멜기세덱은 94년 동안 기본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살렘에서 가르쳤으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렘 학교에 참여하였다. 마침내 그는 전향하여 살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었고, 멜기세덱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두머리 후원자가 되었다.

제 5 장. 아브라함의 선택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수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된 한 개별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멜기세덱은 복수(複數)의 신(神)들을 믿는 우세한 신앙과는 현저히 다른,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살리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멜기세덱의 활동 장소로 팔레스타인이 선택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영도자관계가 될 만한 가능성을 체현하고 있는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멜기세덱이 육신화 되었을 당시에 지구상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렘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잘 준비된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적색 인종들과 황색 인종들 그리고 서부와 북부에 있는 안드-사람 후손들 속에는 동등하게 자질로서 부여받은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장소들 중에 어떤 곳도 나중에 미가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지중해의 동부 해안보다 더 알맞은 장소는 없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임무를 수행한 멜기세덱과 나중에 히브리 민족 속에서 출현한 미가엘의 경우에 지리적인 요소로 인해,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무역과 교통 그리고 문명의 면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이 중심적인 위치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한동안 관찰한 바 있었으며, 그들은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적이고 창의적이며 총명성 그리고 성실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이러한 기대에 일치하였다. 마키벤타가 이집트, 중국,

ease until he had offered a conventional sacrifice. And Melchizedek never did succeed in fully eradicating this proclivity to sacrifice from the religious practices of his followers, even of Abraham.

93:4.15 (1018.4) Like Jesus, Melchizedek attended strictly to the fulfillment of the mission of his bestowal. He did not attempt to reform the mores, to change the habits of the world, nor to promulgate even advanced sanitary practices or scientific truths. He came to achieve two tasks: to keep alive on earth the truth of the one God and to prepare the way for the subsequent mortal bestowal of a Paradise Son of that Universal Father.

93:4.16 (1018.5) Melchizedek taught elementary revealed truth at Salem for ninety-four years, and during this time Abraham attended the Salem school three different times. He finally became a convert to the Salem teachings, becoming one of Melchizedek's most brilliant pupils and chief supporters.

5. THE SELECTION OF ABRAHAM

93:5.1 (1018.6) Although it may be an error to speak of “chosen people,” it is not a mistake to refer to Abraham as a chosen individual. Melchizedek did lay upon Abraham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alive the truth of one God 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ailing belief in plural deities.

93:5.2 (1018.7) The choice of Palestine as the site for Machiventa's activities was in part predicated upon the desire to establish contact with some human family embodying the potentials of leadership. At the time of the incarnation of Melchizedek there were many families on earth just as well prepared to receive the doctrine of Salem as was that of Abraham. There were equally endowed families among the red men, the yellow men, and the descendants of the Andites to the west and north. But, again, none of these localities were so favorably situated for Michael's subsequent appearance on earth as was the eastern shore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Melchizedek mission in Palestine and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Michael among the Hebrew people were in no small measure determined by geography, by the fact that Palestine was centrally located with reference to the then existent trade, travel, and civilization of the world.

93:5.3 (1018.8) For some time the Melchizedek receivers had been observing the ancestors of Abraham, and they confidently expected offspring in a certain generation who would be characterized by intelligence, initiative, sagacity, and sincerity. The children of Terah, the father of Abraham, in every way met these expectations. It

인도, 또는 북쪽에 있는 부족들 속에서 출현하기 보다 살렘에서 출현하였던 상당한 이유는 테라의 이러한 다제다능한 자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테라와 그의 전체 가족은 살렘 종교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향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종교는 이미 갈대아에 전파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르에서 살렘 교리들을 선포하는 페니키아인 선생인 오비드의 설교를 통하여 멜기세덱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직접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하란에 머물자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가지고 나왔던 가신(家神)들을 모두 기꺼이 파괴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그들은 유일하신 살렘의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하느님들을 포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죽은 지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멜기세덱은 자기 학생 중의 하나인 히타이트-사람 야람을 보내어 아브라함과 나홀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였다: “살렘으로 오면 당신들은 영원하신 창조자에 관한 우리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들 두 형제들로부터 태어나는 깨우친 자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오.” 이 때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딴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립하였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자기 삼촌과 함께 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살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북쪽의 침입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가파른 요새를 선정하였다. 이 당시에 히타이트-사람과 아시리아 족속과 필리스틴 족속 그리고 다른 여러 집단들이 팔레스타인 중부와 남부에 있는 부족들을 계속하여 침입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언덕에 있는 요새로부터 자주 살렘으로 순례여행을 하였다.

그들이 살렘 근처에 근거지를 마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타인에 가뭄이 심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음식 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일 계곡으로 여행하였다. 이집트에서의 이 짧은 여행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먼 친족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는 이 왕을 위해 두 차례의 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나일에서 그가 머물렀던 후반기 동안에,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대저택에서 살았으며,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그의 군사 원정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의 몫을 받았다.

이집트의 대저택에서 사는 명예를 버리고 마키벤타에 의해 후원되는 더욱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일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집트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파라오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살렘의 운동에 대한 그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권

was this possibility of contact with these versatile children of Terah that had considerable to do with the appearance of Machiventa at Salem, rather than in Egypt, China, India, or among the northern tribes.

93:5.4 (1019.1) Terah and his whole family were halfhearted converts to the Salem religion, which had been preached in Chaldea; they learned of Melchizedek through the preaching of Ovid, a Phoenician teacher who proclaimed the Salem doctrines in Ur. They left Ur intending to go directly through to Salem, but Nahor, Abraham's brother, not having seen Melchizedek, was lukewarm and persuaded them to tarry at Haran. And it was a long time after they arrived in Palestine before they were willing to destroy *all* of the household gods they had brought with them; they were slow to give up the many gods of Mesopotamia for the one God of Salem.

93:5.5 (1019.2) A few weeks after the death of Abraham's father, Terah, Melchizedek sent one of his students, Jaram the Hittite, to extend this invitation to both Abraham and Nahor: "Come to Salem, where you shall hear our teachings of the truth of the eternal Creator, and in the enlightened offspring of you two brothers shall all the world be blessed." Now Nahor had not wholly accepted the Melchizedek gospel; he remained behind and built up a strong city-state which bore his name; but Lot, Abraham's nephew, decided to go with his uncle to Salem.

93:5.6 (1019.3) Upon arriving at Salem, Abraham and Lot chose a hilly fastness near the city where they c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many surprise attacks of northern raiders. At this time the Hittites, Assyrians, Philistines, and other groups were constantly raiding the tribes of central and southern Palestine. From their stronghold in the hills Abraham and Lot made frequent pilgrimages to Salem.

93:5.7 (1019.4) Not long after they had established themselves near Salem, Abraham and Lot journeyed to the valley of the Nile to obtain food supplies as there was then a drought in Palestine. During his brief sojourn in Egypt Abraham found a distant relative on the Egyptian throne, and he served as the commander of two very successful military expeditions for this king. During the latter part of his sojourn on the Nile he and his wife, Sarah, lived at court, and when leaving Egypt, he was given a share of the spoils of his military campaigns.

93:5.8 (1019.5) It required great determination for Abraham to forgo the honors of the Egyptian court and return to the more spiritual work sponsored by Machiventa. But Melchizedek was revered even in Egypt, and when the full story was laid before Pharaoh, he strongly urged Abraham to return to the execution of his vows to the cause of Salem.

하였다.

아브라함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이집트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의 통치를 받게 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롯에게 이야기하였다. 롯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고, 상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가버렸다. 롯은 군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목자의 생활도 좋아하지 않았다.

자기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적인 계획들을 성사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살렘 지역에서 시민 통치자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근처에 있는 일곱 개의 부족들을 자기 지휘권 밑으로 동맹국을 형성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류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그는 앞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부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서 그들에게 살렘의 진리들을 더 빨리 알게 하려는 열정으로 불이 붙어 있었다.

멜기세덱은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무리들이 앞뒤로 이동할 때에도 전혀 공격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효과를 나타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렘을 위하여 방어적인 정책을 형성하게 되기를 전적으로 원하였지만, 정복을 위한 자기 제자의 야심적인 계획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호적으로 친구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중심지를 수립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건너갔다.

저명한 멜기세덱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소규모의 왕들보다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경하였고 아브라함을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자기 이웃들을 공격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실을 찾게 된 것은 소돔에서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재산을 이 통치자들 중의 일부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 때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자, 7개 동맹 부족들의 수장인 아브라함은 적을 추격하였다. 그의 호위병 318명이 그 무리를 지휘하였는데, 이 때 공격에 가담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지만, 전쟁터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전에 자기 제자였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하느님이 자신의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의 재정으로 제공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 나머지 90퍼센트는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중심지로 옮겨갔다.

깃딤에서의 이 전쟁이 있는 후에, 아브라함은 11개 부족들로 구성된 두 번째 동맹국의 영도자가 되었으며,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부족들도 똑같이 하게 시켰다. 소돔 왕과 맺은 그의 외교적인 거래는,

93:5.9 (1019.6) Abraham had kingly ambitions, and on the way back from Egypt he laid before Lot his plan to subdue all Canaan and bring its people under the rule of Salem. Lot was more bent on business; so, after a later disagreement, he went to Sodom to engage in trade and animal husbandry. Lot liked neither a military nor a herder's life.

93:5.10 (1019.7) Upon returning with his family to Salem, Abraham began to mature his military projects. He was soon recognized as the civil ruler of the Salem territory and had confederated under his leadership seven near-by tribes. Indeed, it was with great difficulty that Melchizedek restrained Abraham, who was fired with a zeal to go forth and round up the neighboring tribes with the sword that they might thus more quickly be brought to a knowledge of the Salem truths.

93:5.11 (1019.8) Melchizedek maintained peaceful relations with all the surrounding tribes; he was not militaristic and was never attacked by any of the armies as they moved back and forth. He was entirely willing that Abraham should formulate a defensive policy for Salem such as was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but he would not approve of his pupil's ambitious schemes for conquest; so there occurred a friendly severance of relationship, Abraham going over to Hebron to establish his military capital.

93:5.12 (1020.1) Abraham, because of his close connection with the illustrious Melchizedek, possessed great advantage over the surrounding petty kings; they all revered Melchizedek and unduly feared Abraham. Abraham knew of this fear and only awaited an opportune occasion to attack his neighbors, and this excuse came when some of these rulers presumed to raid the property of his nephew Lot, who dwelt in Sodom. Upon hearing of this, Abraham, at the head of his seven confederated tribes, moved on the enemy. His own bodyguard of 318 officered the army, numbering more than 4,000, which struck at this time.

93:5.13 (1020.2) When Melchizedek heard of Abraham's declaration of war, he went forth to dissuade him but only caught up with his former disciple as he returned victorious from the battle. Abraham insisted that the God of Salem had given him victory over his enemies and persisted in giving a tenth of his spoils to the Salem treasury. The other ninety per cent he removed to his capital at Hebron.

93:5.14 (1020.3) After this battle of Siddim, Abraham became leader of a second confederation of eleven tribes and not only paid tithes to Melchizedek but saw to it that all others in that vicinity did the same. His diplomatic dealings with

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두려움과 함께, 소돔 왕과 다른 왕들로 하여금 헤브론 군사 동맹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실제로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었다.

the king of Sodom, together with the fear in which he was so generally held, resulted in the king of Sodom and others joining the Hebron military confederation; Abraham was really well on the way to establishing a powerful state in Palestine.

제 6 장.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

6.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의 정복을 꿈꾸었다. 그의 계획을 유일하게 약화시킨 것은 멜기세덱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막 실행하려고 하였을 때, 예상되는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멜기세덱과의 회담을 다시 주선하였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아들인 살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하늘의 왕국의 영적 개념을 위하여 물질적인 정복에 대한 그의 계획과 현세적인 통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회담 과정에서였다.

93:6.1 (1020.4) Abraham envisaged the conquest of all Canaan. His determination was only weakened by the fact that Melchizedek would not sanction the undertaking. But Abraham had about decided to embark upon the enterprise when the thought that he had no son to succeed him as ruler of this proposed kingdom began to worry him. He arranged another conference with Melchizedek; and it was in the course of this interview that the priest of Salem, the visible Son of God, persuaded Abraham to abandon his scheme of material conquest and temporal rule in favor of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멜기세덱은 아모라이트 동맹과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달되지 못한 씨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실천 관행들에 의해 자멸될 것이 분명하므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너무도 약하게 되어 그 동안에 엄청나게 증가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쉽게 그들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93:6.2 (1020.5) Melchizedek explained to Abraham the futility of contending with the Amorite confederation but made it equally clear that these backward clans were certainly committing suicide by their foolish practices so that in a few generations they would be so weakened that the descendants of Abraham, meanwhile greatly increased, could easily overcome them.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저 하늘들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정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에 멜기세덱은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문 후에 그들에게 의해서 장차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였다.

93:6.3 (1020.6) And Melchizedek made a formal covenant with Abraham at Salem. Said he to Abraham: “Look now up to the heavens and number the stars if you are able; so numerous shall your seed be.” And Abraham believed Melchizedek, “and it was 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And then Melchizedek told Abraham the story of the future occupation of Canaan by his offspring after their sojourn in Egypt.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을 하시기로 동의하시는 신성(神性)과 인간성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계약을 대표한다;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할 뿐이다. 그 전에는 구원이 오직 행위—희생 제물과 헌물—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믿어 왔었다; 이제는 멜기세덱이 구원, 하느님의 은혜가 신앙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복된 소식을 다시 유란시아에 전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다; 셈족의 부족민들은 그 후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 값을 갚는 일과 옛날의 희생 제물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더 좋아하였다.

93:6.4 (1020.7) This covenant of Melchizedek with Abraham represents the great Urantian agreement between divinity and humanity whereby God agrees to do *everything*; man only agrees to *believe* God's promises and follow his instructions. Heretofore it had been believed that salvation could be secured only by works — sacrifices and offerings; now, Melchizedek again brought to Urantia the good news that salvation, favor with God, is to be had by *faith*. But this gospel of simple faith in God was too advanced; the Semitic tribesmen subsequently preferred to go back to the older sacrifices and atonement for sin by the shedding of blood.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멜기세덱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93:6.5 (1021.1) It was not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is covenant that Isaac, the son of Abraham, was born in accordance with the promise of

과 맺은 계약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것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살렘으로 건너갔다. 그가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그 계약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수락한 이 때였다.

살렘 종교를 믿는 자들 대부분이 이미 할례를 실천 하였었지만, 그것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늘 할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그는 살렘 계약을 비준한다는 표시로 이 예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건을 엄숙하게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멜기세덱의 더 큰 계획을 위하여 그의 개인적인 야망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이 일에 뒤따라서, 세 명의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마므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연적인 파괴와 관련시켜서 나중에 합성된 이야기가 꾸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로 나타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전설은 도덕과 윤리가 최근까지도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엄숙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화해가 완성되었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민단의 시민적인 지도권과 군사적인 지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되었는데, 전성기에는 멜기세덱 형제회의 명부에 실린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성전을 크게 개량하였으며 모든 학교에 새로운 천막을 제공하였다. 그는 십일조 체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선된 많은 방법들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선교사를 통한 선전 방법을 더 잘 운용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살렘의 낙농업 사업과 목축업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기민하고도 유능한 사업가, 당대의 큰 부자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철저히 진지하였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다.

제 7 장. 멜기세덱 선교사들

멜기세덱은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하였는데,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로 퍼져 나갔으며, 특별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가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더욱 먼 지역으로 이동해 갔으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마키벤타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반의 호숫가에 군(群)을 이루었던 아담아들의 후손들은 살렘 예배종파의 히타이트 선생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듣고자 하였다. 한 때 안드-사람의

Melchizedek. After the birth of Isaac, Abraham took a very solemn attitude toward his covenant with Melchizedek, going over to Salem to have it stated in writing. It was at this public and formal acceptance of the covenant that he changed his name from Abram to Abraham.

93:6.6 (1021.2) Most of the Salem believers had practiced circumcision, though it had never been made obligatory by Melchizedek. Now Abraham had always so opposed circumcision that on this occasion he decided to solemnize the event by formally accepting this rite in token of the ratification of the Salem covenant.

93:6.7 (1021.3) It was following this real and public surrender of his personal ambitions in behalf of the larger plans of Melchizedek that the three celestial beings appeared to him on the plains of Mamre. This was an appearance of fact, notwithstanding its association with the subsequently fabricated narratives relating to the natural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nd these legends of the happenings of those days indicate how retarded were the morals and ethics of even so recent a time.

93:6.8 (1021.4) Upon the consummation of the solemn covenant, the reconciliation between Abraham and Melchizedek was complete. Abraham again assumed the civil and military leadership of the Salem colony, which at its height carried over one hundred thousand regular tithe payers on the rolls of the Melchizedek brotherhood. Abraham greatly improved the Salem temple and provided new tents for the entire school. He not only extended the tithing system but also instituted many improved methods of conducting the business of the school, beside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better handling of the department of missionary propaganda. He also did much to effect improvement of the herd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alem dairying projects. Abraham was a shrewd and efficient business man, a wealthy man for his day; he was not overly pious, but he was thoroughly sincere, and he did believe in Machiventa Melchizedek.

7.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93:7.1 (1021.5) Melchizedek continued for some years to instruct his students and to train the Salem missionaries, who penetrated to all the surrounding tribes, especially to Egypt, Mesopotamia, and Asia Minor. And as the decades passed, these teachers journeyed farther and farther from Salem, carrying with them Machiventa's gospel of belief and faith in God.

93:7.2 (1021.6) The descendants of Adamson, clustered about the shores of the lake of Van, were willing listeners to the Hittite teachers of the Salem

중심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여러 선생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으로 보내졌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들어갔고, 심지어는 영국 섬들에도 이르렀다. 어떤 집단은 페로 제도(諸島)를 경유하여 아이슬란드의 안드-사람들에게로 갔고, 또 어떤 집단은 중국을 건너 동쪽 섬에 있는 일본인에게로 갔다. 동반구에 있는 부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살렘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반 호수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진하였던 남녀 사람들의 삶과 체험은, 인간 종족의 연대기(年代記)에 있어서 영웅적인 부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임무는 너무 힘든 것이었고 그 부족들은 너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미미하고 명확치 않았다. 세대가 바뀌면서 살렘 복음의 거점이 여기저기에 형성되었지만, 팔레스타인은 예외적이었는데, 한 분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전체 부족 또는 종족의 계속적인 충성을 얻을 수가 없었다. 예수의 도래 훨씬 전에,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들은 대개 옛날의 더욱 보편적인 미신과 신념들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기원의 멜기세덱 복음은 대모(大母) 숭배와 태양 숭배 그리고 다른 고대의 예배종파들을 믿는 신앙들 속으로 이미 거의 전적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인쇄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너희는 이러한 초기 시대 동안에 진리를 영속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교리에 대한 견해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교리가 옛날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마술적 실천 관행의 본체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경향이 항상 존재하였다. 새로운 계시는 항상 옛날의 진화적인 신념들에 의해서 오염되게 마련이다.

제 8 장. 멜기세덱이 떠남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서의 자신의 응급 대책의 증여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직후였다. 멜기세덱이 육신 안에서의 자신의 임시 거주를 종결짓기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가까운 연관-동료들까지도 그를 반신반인으로 간주하고 초인간적인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가 그런 존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그리고 아주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멜기세덱은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자신의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 무대를 떠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마키벤타는 어느 날 밤 자기 인간 동행자들에게 취침 인사를 하면서 살렘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물러갔으며,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는, 그가 거기에 없었는데, 그의 연관-동료들이 그를 이미 데려갔기 때문이었

cult. From this onetime Andite center, teachers were dispatched to the remote regions of both Europe and Asia.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all Europe, even to the British Isles. One group went by way of the Faroes to the Andonites of Iceland, while another traversed China and reached the Japanese of the eastern islands.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the men and women who ventured forth from Salem, Mesopotamia, and Lake Van to enlighten the tribes of the Eastern Hemisphere present a heroic chapter in the annals of the human race.

93:7.3 (1022.1) But the task was so great and the tribes were so backward that the results were vague and indefinit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 Salem gospel found lodgment here and there, but except in Palestine, never was the idea of one God able to claim the continued allegiance of a whole tribe or race. Long before the coming of Jesus the teachings of the early Salem missionaries had become generally submerged in the older and more universal superstitions and beliefs. The original Melchizedek gospel had been almost wholly absorbed in the beliefs in the Great Mother, the Sun, and other ancient cults.

93:7.4 (1022.2) You who today enjoy the advantages of the art of printing little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as to perpetuate truth during these earlier times; how easy it was to lose sight of a new doctrin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re was always a tendency for the new doctrine to become absorbed into the older body of religious teaching and magical practice. A new revelation is always contaminated by the older evolutionary beliefs.

8. DEPARTURE OF MELCHIZEDEK

93:8.1 (1022.3) It was shortly after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that Machiventa decided to end his emergency bestowal on Urantia. Melchizedek's decision to terminate his sojourn in the flesh was influenced by numerous conditions, chief of which was the growing tendency of the surrounding tribes, and even of his immediate associates, to regard him as a demigod, to look upon him as a supernatural being, which indeed he was; but they were beginning to reverence him unduly and with a highly superstitious fear. In addition to these reasons, Melchizedek wanted to leave the scene of his earthly activities a sufficient length of time before Abraham's death to insure that the truth of the one and only God would become strongly established in the minds of his followers. Accordingly Machiventa retired one night to his tent at Salem, having said good night to his human companions, and when they went to call him in the morning, he was not there, for his fellows had taken him.

다.

제 9 장. 멜기세덱이 떠난 이후

멜기세덱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비록 자기가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동료들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하였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이로운 영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것에서 세운 것이 이 시대의 전통이긴 하였지만,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가득하였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였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하였다; 이제는 영적인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자신의 연관-동료를 잃게 되자, 그는 살렘을 떠났고, 길갈에 있는 자기 동반자들 근처에서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멜기세덱이 사라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소심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길갈에 도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채었다. (사라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밤 그의 찬란한 아내를 가지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이것 이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한 그 영도자에게 이 두려움은 공포가 되었다; 그의 모든 삶에서 그는 누군가가 사자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은밀하게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서, 따로따로 있었던 세 번의 사건에서, 이 용감한 남자가 실제 겁쟁이처럼 드러내 보였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곧 필리스틴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민족 중에서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하였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많은 미신들에 의해서 특별히 첫 태생의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제공하는 그들의 실천 관행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큰 영도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집단들로부터 숭배를 받았고 모든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모든 이웃 부족들의 영적인 영도자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동안에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무대였으며 멜기세덱과 관계적-연합하여 활동하였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자기 아들이삭의 아내로 자신의 원래 민족들 중에서 한 여인을 확실하게 얻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자기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만한 하인들을 보낸 것이었다. 자기 사촌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의 학교들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웠던 하느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

9. AFTER MELCHIZEDEK'S DEPARTURE

93:9.1 (1022.4) It was a great trial for Abraham when Melchizedek so suddenly disappeared. Although he had fully warned his followers that he must sometime go as he had come, they were not reconciled to the loss of their wonderful leader. The great organization built up at Salem nearly disappeared, though the traditions of these days were what Moses built upon when he led the Hebrew slaves out of Egypt.

93:9.2 (1022.5) The loss of Melchizedek produced a sadness in the heart of Abraham that he never fully overcame. Hebron he had abandoned when he gave up the ambition of building a material kingdom; and now, upon the loss of his associate in the building of the spiritual kingdom, he departed from Salem, going south to live near his interests at Gerar.

93:9.3 (1022.6) Abraham became fearful and timid immediately after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He withheld his identity upon arrival at Gerar, so that Abimelech appropriated his wife. (Shortly after his marriage to Sarah, Abraham one night had overheard a plot to murder him in order to get his brilliant wife. This dread became a terror to the otherwise brave and daring leader; all his life he feared that someone would kill him secretly in order to get Sarah. And this explains why, on three separate occasions, this brave man exhibited real cowardice.)

93:9.4 (1023.1) But Abraham was not long to be deterred in his mission as the successor of Melchizedek. Soon he made converts among the Philistines and of Abimelech's people, made a treaty with them, and, in turn, became contaminated with many of their superstitions, particularly with their practice of sacrificing first-born sons. Thus did Abraham again become a great leader in Palestine. He was held in reverence by all groups and honored by all kings. He was the spiritual leader of all the surrounding tribes, and his influence continued for some time after his death. During the closing years of his life he once more returned to Hebron, the scene of his earlier activities and the place where he had worked in association with Melchizedek. Abraham's last act was to send trusty servants to the city of his brother, Nahor, on the border of Mesopotamia, to secure a woman of his own people as a wife for his son Isaac. It had long been the custom of Abraham's people to marry their cousins. And Abraham died confident in that faith in God which he had learned from Melchizedek in

안하게 죽었다.

그 다음 세대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여기게 되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아주 잘 파악하였고 살렘 거류민단의 복음을 잘 보호하였지만, 이 전승들의 의의(意義)를 이해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몽상가로 취급되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무리의 군사 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의 가르침들을 그토록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부 행정-관리자로 일하도록 선택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만하고도 충분한 것이었지만, 이 시대의 기록들은 후대의 히브리 사제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으나, 적어도 바빌로니아에서 구약 성경 기록들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들 활동행위들을 납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 안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협의된 것이었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느님의 동의어로 간주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의 천사"와 매우 여러 번 접촉하였다는 기록은 그들이 수없이 많이 멜기세덱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히브리 전승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들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한 것이지만, 그것들도 역시 사실들로부터 많은 전환들을 담고 있는데, 바빌로니아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사제들에 의해 이 기록들이 편집될 때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변경되었다. 케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다; 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하였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本妻)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더 어렸다. 이 나이들은 나중에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기 정체성은 바빌로니아에 포로가 됨으로써 엄청나게 약화되었다. 민족적인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다른 쪽의 극단적인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이기주의로 물러갔으며,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들보다 우위에 서도록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전승들을 왜곡시키고 오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자신들의 다른 민족적 영도자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기록들을 세심하게 변경시켰으며, 멜기

the vanished schools of Salem.

93:9.5 (1023.2) It was hard for the next generation to comprehend the story of Melchizedek; within five hundred years many regarded the whole narrative as a myth. Isaac held fairly well to the teachings of his father and nourished the gospel of the Salem colony, but it was harder for Jacob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se traditions. Joseph was a firm believer in Melchizedek and was, largely because of this, regarded by his brothers as a dreamer. Joseph's honor in Egypt was chiefly due to the memory of his great-grandfather Abraham. Joseph was offered military command of the Egyptian armies, but being such a firm believer in the traditions of Melchizedek and the later teachings of Abraham and Isaac, he elected to serve as a civil administrator, believing that he could thus better labor for the advance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93:9.6 (1023.3) The teaching of Melchizedek was full and replete, but the records of these days seemed impossible and fantastic to the later Hebrew priests, although many had some understanding of these transactions, at least up to the times of the en masse editing of the Old Testament records in Babylon.

93:9.7 (1023.4) What the Old Testament records describe as conversations between Abraham and God were in reality conferences between Abraham and Melchizedek. Later scribes regarded the term Melchizedek as synonymous with God. The record of so many contacts of Abraham and Sarah with "the angel of the Lord" refers to their numerous visits with Melchizedek.

93:9.8 (1023.5) The Hebrew narratives of Isaac, Jacob, and Joseph are far more reliable than those about Abraham, although they also contain many diversions from the facts, alterations made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at the time of the compilation of these records by the Hebrew priests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Keturah was not a wife of Abraham; like Hagar, she was merely a concubine. All of Abraham's property went to Isaac, the son of Sarah, the status wife. Abraham was not so old as the records indicate, and his wife was much younger. These ages were deliberately altere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subsequent alleged miraculous birth of Isaac.

93:9.9 (1023.6) The national ego of the Jews was tremendously depressed by the Babylonian captivity. In their reaction against national inferiority they swung to the other extreme of national and racial egotism, in which they distorted and perverted their traditions with the view of exalting themselves above all races as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hence they carefully edited all their records for the purpose of raising Abraham and their other national leaders high up above all other persons, not excepting Melchizedek himself. The

세택 자신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서기관들은 이들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파괴시켰으며,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싯딤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을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을 잊게 되면서, 그들은 또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임무에 관한 이 비상 대책 아들의 가르침도 잊게 되었다; 이 임무의 본질에 대한 망각이 너무도 충만하고 완벽하였기 때문에, 마키벤타가 예언하였던 대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미가엘을 기꺼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들 중의 한 사람이 멜기세덱의 임무를 납득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삶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느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고, 계속하여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 이 기자(記者)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모형으로 삼았으며, 예수가 “언제까지나 멜기세덱의 계층을 따르는 성직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의 세계에 증여된 시기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12명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의 계층들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받았던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다.

Hebrew scribes therefore destroyed every record of these momentous times which they could find, preserving only the narrative of the meeting of Abraham and Melchizedek after the battle of Siddim, which they deemed reflected great honor upon Abraham.

93:9.10 (1024.1) And thus, in losing sight of Melchizedek, they also lost sight of the teaching of this emergency Son regarding the spiritual mission of the promised bestowal Son; lost sight of the nature of this mission so fully and completely that very few of their progeny were able or willing to recognize and receive Michael when he appeared on earth and in the flesh as Machiventa had foretold.

93:9.11 (1024.2) But one of the writers of the Book of Hebrews understood the mission of Melchizedek, for it is written: “This Melchizedek, priest of the Most High, was also king of peace;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pedigree,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but made like a Son of God, he abides a priest continually.” This writer designated Melchizedek as a type of the later bestowal of Michael, affirming that Jesus was “a minister forever on the order of Melchizedek.” While this comparison was not altogether fortunate, it was literally true that Christ did receive provisional title to Urantia “upon the orders of the twelve Melchizedek receivers” on duty at the time of his world bestowal.

제 10 장.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마키벤타가 육신화 되어 있던 여러 해의 기간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접수자들은 11명으로 활동하였다. 마키벤타가 비상 대책 아들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완결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사실을 11명의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그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그의 기원적 멜기세덱 지위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법을 즉시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가 살렘로부터 사라진 후 3일째 되던 날에 그는 유란시아를 양도받은 11명의 자기 연관-동료들 사이에 나타났고 사타니아의 606번에 대한 행성 접수자들의 하나로서 자신의 단절되었던 업무를 재개하였다.

마키벤타는 그가 시작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형식 없이, 육체를 갖는 창조체로서의 증여를 종결시켰다. 그의 출현 뿐만 아니라 사라짐도 아무런 비상한 공포나 실증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부활의 역사도 행성 섭리 시대의 종결도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출현을 현저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의 출현은 비상 대책의 증여였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자신이 아버지 멜기세덱에 의해 정식으로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비상 대책 증여가 네바돈의 우두머리 집행자인

10. PRESENT STATUS OF MACHIVENTA MELCHIZEDEK

93:10.1 (1024.3) During the years of Machiventa's incarnation the Urantia Melchizedek receivers functioned as eleven. When Machiventa considered that his mission as an emergency Son was finished, he signalized this fact to his eleven associates, and they immediately made ready the technique whereby he was to be released from the flesh and safely restored to his original Melchizedek status. And on the third day after his disappearance from Salem he appeared among his eleven fellows of the Urantia assignment and resumed his interrupted career as one of the planetary receivers of 606 of Satania.

93:10.2 (1024.4) Machiventa terminated his bestowal as a creature of flesh and blood just as suddenly and unceremoniously as he had begun it. Neither his appearance nor departure were accompanied by any unusual announcement or demonstration; neither resurrection roll call nor ending of planetary dispensation marked his appearance on Urantia; his was an emergency bestowal. But Machiventa did not end his sojourn in the flesh of human beings until he had been duly released by the

구원자별의 가브리엘로부터 허락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간 존재의 육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기가 육신 속에 있을 때 자기 가르침들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켄-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살렘 교훈의 어떤 분명한 개념을 오랫동안 계속 보존하였던 유일한 혈통이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계속되는 19개의 세기들 동안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일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미가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까지 살렘의 진리들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계속 행성 접수자로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셈에서의 유란시아 봉사에 24명의 관리자 중의 하나로 임명되었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루셈에서의 창조자 아들의 개인적인 대사 자격으로 승격되었는데,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의 직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남아 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신의 아들관계 계층의 임무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대리자가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증여가 비상 대책의 것이었듯이, 마키벤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무리단은 그들 숫자 중의 하나를 영원히 손실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나타날 것이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로부터 전해진 최근의 판결문들과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타락한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자리를, 증여되었던 이 멜기세덱이 대신하게 될 것임이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기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직접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위된 행성영주 직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현재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직함을 실제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신하여 대리 행성영주로 활동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본다면 앞에 말한 추측이 진실과 멀지 않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다.

우리는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승리에 의해 어떻게 그가 칼리가스티아와 아담의 계승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잘 납득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하여 행성 평화의 영주와 두 번째 아담이 되었는지를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

Father Melchizedek and had been informed that his emergency bestowal had received the approval of the chief executive of Nebadon, Gabriel of Salvington.

93:10.3 (1024.5) Machiventa Melchizedek continued to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affairs of the descendants of those men who had believed in his teachings when he was in the flesh. But the progeny of Abraham through Isaac as intermarried with the Kenites were the only line which long continued to nourish any clear concept of the Salem teachings.

93:10.4 (1024.6) This same Melchizedek continued to collaborate throughout the nineteen succeeding centuries with the many prophets and seers, thus endeavoring to keep alive the truths of Salem until the fullness of the time for Michael's appearance on earth.

93:10.5 (1025.1) Machiventa continued as a planetary receiver up to the times of the triumph of Michael on Urantia. Subsequently, he was attached to the Urantia service on Jerusem as one of the four and twenty directors, only just recently having been elevated to the position of personal ambassador on Jerusem of the Creator Son, bearing the titl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It is our belief that, as long as Urantia remains an inhabited planet, Machiventa Melchizedek will not be fully returned to the duties of his order of sonship but will remain, speaking in the terms of time, forever a planetary minister representing Christ Michael.

93:10.6 (1025.2) As his was an emergency bestowal on Urantia, it does not appear from the records what Machiventa's future may be. It may develop that the Melchizedek corps of Nebadon have sustained the permanent loss of one of their number. Recent rulings handed down from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later confirm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strongly suggest that this bestowal Melchizedek is destined to take the place of the fallen Planetary Prince, Caligastia. If our conjectures in this respect are correct,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Machiventa Melchizedek may again appear in person on Urantia and in some modified manner resume the role of the dethroned Planetary Prince, or else appear on earth to function as vicegerent Planetary Prince representing Christ Michael, who now actually holds the title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hile it is far from clear to us as to what Machiventa's destiny may be, nevertheless, events which have so recently taken place strongly suggest that the foregoing conjectures are probably not far from the truth.

93:10.7 (1025.3) We well understand how, by his triumph on Urantia, Michael became the successor of both Caligastia and Adam; how he became the planetary Prince of Peace and the second Adam. And now we behold the conferring

텍에게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영주의 직함이 수여 될 것을 기대한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대리 물질아들로도 임명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하였던 그리고 전례가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언젠가 아담과 이브가 그 행성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후손이 미가엘의 대리자로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아담의 대리자 직함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치안법관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둘 모두 장차 출현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관계되는 이러한 모든 추측들은, 창조자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과 함께, 유란시아를 네바돈의 전체 우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구체들 중의 하나가 되게 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행성으로 만든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까이 도달하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분리에 관한 관련사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에, 마키벤타와 아담과 이브 그리고 미가엘 그리스도 또한 치안법관 아들 또는 심지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현존함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명의 조연자들인, 유란시아 관리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무리단에 마키벤타의 현존은 그가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따라서 우주의 진보 계획에 참여하고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으로까지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우리 계층 속에서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상태 속에 정착되게 될 때,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땅에서의 동료들과 함께 파라다이스 모험여행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음을 알고 있다.

불과 1,000년 전에, 한 때 살렘의 현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나타나, 100년 기간 동안 행성의 거주충독으로 활동하였다; 만약에 행성의 관련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금의 체계가 계속된다면, 약 1,000년이 조금 지나서 동일한 수용능력으로 마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되게 되었던 모든 성격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들 중의 하나이며, 너희의 불규칙적이고 유별난 세계의 미래 체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개인적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upon this Melchizedek of the titl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he also be constituted Vicegerent Material Son of Urantia? Or is there a possibility that an unexpected and unprecedented event is to take place, the sometime return to the planet of Adam and Eve or certain of their progeny as representatives of Michael with the titles vicegerents of the second Adam of Urantia?

93:10.8 (1025.4) And all these speculations associated with the certainty of future appearances of both Magisterial and Trinity Teacher Sons, in conjunction with the explicit promise of the Creator Son to return sometime, make Urantia a planet of future uncertainty and render it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intriguing spheres in all the universe of Nebadon.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in some future age when Urantia is approaching the era of light and life, after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the Caligastia secession have been finally adjudicated, we may witness the presence on Urantia, simultaneously, of Machiventa, Adam, Eve, and Christ Michael, as well as either a Magisterial Son or even Trinity Teacher Sons.

93:10.9 (1025.5) It has long been the opinion of our order that Machiventa's presence on the Jerusem corps of Urantia directors, the four and twenty counselors, is sufficient evidence to warrant the belief that he is destined to follow the mortals of Urantia on through the universe scheme of progression and ascension even to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We know that Adam and Eve are thus destined to accompany their earth fellows on the Paradise adventure when Urantia has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93:10.10 (1025.6) Less than a thousand years ago this same Machiventa Melchizedek, the onetime sage of Salem, was invisibly present on Urantia for a period of one hundred years, acting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of the planet; and if the present system of directing planetary affairs should continue, he will be due to return in the same capacity in a little over one thousand years.

93:10.11 (1026.1) This is the story of Machiventa Melchizedek, one of the most unique of all characters ever to become connected with the history of Urantia and a personality who may be destin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experience of your irregular and unusual world.

93:10.12 (1026.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4 편 동양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 093

유랜시아 책

09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4 편 동양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색션

소개

제 1 장. 베다 인도에서의 살렘의 가르침

제 2 장. 브라만교

제 3 장. 브라만교의 철학

제 4 장. 힌두교

제 5 장. 중국에서의 진리를 위한 투쟁

제 6 장. 노자와 공자

제 7 장. 고타마 싯다르타

제 8 장. 불교 신앙

제 9 장. 불교의 전파

제 10 장. 티베트에서의 종교

제 11 장. 불교도의 철학

제 12 장. 불교의 하느님 개념

PAPER 94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ORI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Teachings in Vedic India

2. Brahmanism

3. Brahmanic Philosophy

4. The Hindu Religion

5. The Struggle for Truth in China

6. Lao-Tse and Confucius

7. Gautama Siddhartha

8. The Buddhist Faith

9. The Spread of Buddhism

10. Religion in Tibet

11. Buddhist Philosophy

12. The God Concept of Buddhism

소개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한 유일한 대가는 한 분뿐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신앙과 신뢰라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계속 전도하는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이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가장 먼 부족들에게로 스며들었다. 멜기세덱의 아브라함과의 서약은 살렘과 다른 중심지들로부터 퍼져나가는 초기의 모든 선전 운동의 원형들이었다. 유랜시아는 동반구(東半球) 전체에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전하였던 이 고귀한 남녀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종교의 선교사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들과 인종들로부터 모집되었으며, 주로 자기 나라의 개종자들을 매개로 하여 가르침들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훈련 중심지들을 설립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친 후에 이 제자들이 각자 자기 민족 속에서 선생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하였다.

INTRODUCTION

94:0.1 (1027.1) THE early teachers of the Salem religion penetrated to the remotest tribes of Africa and Eurasia, ever preaching Machiventa's gospel of man's faith and trust in the one universal God as the only price of obtaining divine favor. Melchizedek's covenant with Abraham was the pattern for all the early propaganda that went out from Salem and other centers. Urantia has never had more enthusiastic and aggressive missionaries of any religion than these noble men and women who carried the teachings of Melchizedek over the entire Eastern Hemisphere. These missionaries were recruited from many peoples and races, and they largely spread their teachings through the medium of native converts. They established training center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ere they taught the natives the Salem religion and then commissioned these

pupils to function as teachers among their own people.

제 1 장. 베다 인도에서의 살렘의 가르침

멜기세덱의 시대에, 인도는 최근에 북서쪽으로부터 침입한 아리안-안드-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 세계주의의 국가였다. 이 당시에 반도(半島)의 북부와 서부만이 아리아 족속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점령되어 있었다. 이 베다의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의 많은 부족 신(神)들을 가져왔다. 그들의 경배의 종교적 형태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사제(司祭) 기능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여자 사제의 역할을 하였으며, 가정의 화로(火爐)가 아직도 하나의 제단으로 사용되던 그들의 옛 안드-사람 조상들의 의식적인 실천 관행들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베다 예배종파는 그 때에 확대되는 경배 예식에 대하여 점점 더 통제를 장악해가고 있던 선생-사제인 브라만 특권계급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과 변형의 과정에 있었다. 살렘 선교사들이 인도의 북부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때 33개에 달하였던 아리아족 신(神)들의 합병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아리아족들의 다신론은 부족 단위로, 각각의 부족이 그들이 숭배하는 하느님을 가지는, 그들의 분리에 의하여 야기된 그들의 초기 유일신론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기원에서의 유일신론의 이러한 퇴화와 메소포타미아 안드-사람의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 이전 두 번째 1,000년기의 초기 세기들에 재합성의 과정에 있었다. 많은 하느님들은 하늘의 주인인 다이우스 피타의 삼원적 지도력 아래에서 만신(萬神)으로 조직되었다; 대기의 광포한 주인인 인드라; 그리고 땅의 주인이며 초기의 삼위일체 개념의 흔적인 머리가 셋 달린 불의 하느님인 애그니가 있었다.

명확한 단일신교의 발전들은 진화된 일신교(一神敎)를 위해 길을 닦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신(神)인 애그니는 전체 만신의 아버지-우두머리로 종종 승격되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프라야파티로 불리는, 때로는 브라마로 명명되는, 신(神)-아버지 원리가 후에 브라만 사제들이 살렘 선생들과 싸웠던 신학적 전쟁에서 가라앉았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신성 원리로 생각되었다.

살렘 선교사들은 멜기세덱의 하나의 하느님, 하늘에 계신 지고자를 전도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모든 신(神)들의 근원으로서 아버지-브라마라의 창발하는 개념과 모두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렘의 교리는 비(非)의식적이었고 그리하여 브라만 사제 제도의 독단론, 전통들 그리고 가르침들에 직접적으로 거슬리는 것이 되었다. 브라만 사제들은 신앙을 통한 구원, 의식적인 행사와 희

1. THE SALEM TEACHINGS IN VEDIC INDIA

94:1.1 (1027.2) In the days of Melchizedek, India was a cosmopolitan country which had recently come under the political and religious dominance of the Aryan-Andite invaders from the north and west. At this time only the northern and western portions of the peninsula had been extensively permeated by the Aryans. These Vedic newcomers had brought along with them their many tribal deities. Their religious forms of worship followed closely the ceremonial practices of their earlier Andite forebears in that the father still functioned as a priest and the mother as a priestess, and the family hearth was still utilized as an altar.

94:1.2 (1027.3) The Vedic cult was then in process of growth and metamorphosis under the direction of the Brahman caste of teacher-priests, who were gradually assuming control over the expanding ritual of worship. The amalgamation of the onetime thirty-three Aryan deities was well under way when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the north of India.

94:1.3 (1027.4) The polytheism of these Aryans represented a degeneration of their earlier monotheism occasioned by their separation into tribal units, each tribe having its venerated god. This devolution of the original monotheism and trinitarianism of Andite Mesopotamia was in process of resynthesis in the early centuries of the second millennium before Christ. The many gods were organized into a pantheon under the triune leadership of Dyaus pitar, the lord of heaven; Indra, the tempestuous lord of the atmosphere; and Agni, the three-headed fire god, lord of the earth and the vestigial symbol of an earlier Trinity concept.

94:1.4 (1027.5) Definite henotheistic developments were paving the way for an evolved monotheism. Agni, the most ancient deity, was often exalted as the father-head of the entire pantheon. The deity-father principle, sometimes called Prajapati, sometimes termed Brahma, was submerged in the theologic battle which the Brahman priests later fought with the Salem teachers. *The Brahman* was conceived as the energy-divinity principle activating the entire Vedic pantheon.

94:1.5 (1028.1) The Salem missionaries preached the one God of Melchizedek, the Most High of heaven. This portrayal was not altogether disharmonious with the emerging concept of the Father-Brahma as the source of all gods, but the Salem doctrine was nonritualistic and hence ran directly counter to the dogmas, traditions, and teachings of the Brahman priesthood. Never would the Brahman

생 제물의 예식들과는 별도의 하느님의 은혜의, 살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신앙을 통한 구원과 하느님을 신뢰하는 멜기세덱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인도에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살렘 선교사들은 모든 고대 베다의 하느님들에 대한 신앙의 소멸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베다의 가르침의 사제들인 영도자들은, 하나의 하느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들과의 투쟁의 노력으로 자기들 시대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발췌하였으며, 이 편집물은 나중에 다시 개정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리그-베다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책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브라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배와 희생의 그들의 의식들을 구체화시키고, 형식화하고, 고정시키려고 애를 씀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베다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개념의 아름다움과 통찰력의 진실에서 비슷한 성격의 다른 본문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월한 이 종교가 남부 인도의 수많은 미신들과 예배종파들과 예식들에 의해 오염되게 되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필사 사람이 개발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잡다한 체계로 변환되었다. 베다 경전들을 살펴보면, 전에 알려졌던 신(神)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과 가장 타락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브라만교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점차 확대되는 특권계급 체계, 두 번째 산각 종족들의 증가에 직면하여 종족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아리아족들의 계획과 부닥치게 되었다. 브라만 사제 특권계급이 이 체계의 가장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계층이 살렘 선생들의 전진을 크게 방해하였다. 이 특권계급 체계는 아리아 종족을 구원하기에 실패하였지만, 반면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그들의 종교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만들을 영속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베다의 가르침이 약화되면서, 아리아들의 예배종파는 데칸으로부터 점점 더 침식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인종적인 사멸(死滅)과 종교적인 소멸의 조류를 막아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브라만 특권계급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스스로를 우위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神)에게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효과적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은 그 위력에 있어서 모두-강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우주에 두 가지의 근본적인 신성한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신(神)인 브라만이었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 계급이었다. 유란시

priests accept the Salem teaching of salvation through faith, favor with God apart from ritualistic observances and sacrificial ceremonials.

94:1.6 (1028.2) The rejection of the Melchizedek gospel of trust in God and salvation through faith marked a vital turning point for India. The Salem missionaries had contributed much to the loss of faith in all the ancient Vedic gods, but the leaders, the priests of Vedism, refused to accept the Melchizedek teaching of one God and one simple faith.

94:1.7 (1028.3) The Brahmins culled the sacred writings of their day in an effort to combat the Salem teachers, and this compilation, as later revised, has come on down to modern times as the Rig-Veda, one of the most ancient of sacred books. The second, third, and fourth Vedas followed as the Brahmins sought to crystallize, formalize, and fix their rituals of worship and sacrifice upon the peoples of those days. Taken at their best, these writings are the equal of any other body of similar character in beauty of concept and truth of discernment. But as this superior religion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uperstitions, cults, and rituals of southern India, it progressively metamorphosed into the most variegated system of theology ever developed by mortal man. An examination of the Vedas will disclose some of the highest and some of the most debased concepts of Deity ever to be conceived.

2. BRAHMANISM

94:2.1 (1028.4) As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southward into the Dravidian Deccan, they encountered an increasing caste system, the scheme of the Aryans to prevent loss of racial identity in the face of a rising tide of the secondary Sangik peoples. Since the Brahman priest caste was the very essence of this system, this social order greatly retarded the progress of the Salem teachers. This caste system failed to save the Aryan race, but it did succeed in perpetuating the Brahmins, who, in turn, have maintained their religious hegemony in India to the present time.

94:2.2 (1028.5) And now, with the weakening of Vedism through the rejection of higher truth, the cult of the Aryans became subject to increasing inroads from the Deccan. In a desperate effort to stem the tide of racial extinction and religious obliteration, the Brahman caste sought to exalt themselves above all else. They taught that the sacrifice to deity in itself was all-efficacious, that it was all-compelling in its potency. They proclaimed that, of the two essential divine principles of the universe, one was Brahman the deity, and the other was the Brahman priesthood. Among no other Urantia peoples did the priests presume to

아의 다른 민족들 중에서 사제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하느님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드높이려고 하였고, 그들의 하느님들에게 돌아갈 명예를 그들 자신에게로 돌린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주장들과 함께 너무나 모순되게 멀리 갔기 때문에 전체의 불확실한 체계는 주변의 덜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저급의 예배종파들 앞에서 붕괴되었다. 거대한 베다의 사제 계급 자체는, 그들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가정이 인도 전체에 초래하였던 타성과 염세주의의 암담한 홍수 밑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갔다.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사람, 짐승 또는 초목으로의 끝없는 환생으로 자아의 비진화적인 영속의 두려움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일신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에 고정될 수 있는 오염된 신념들 전체 중에서, 어떤 것도 드라비다의 데칸으로부터 온 윤회에 대한 이 신념—혼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교리—처럼 그토록 망쳐놓지 못하였다. 지루하고도 단조로운 반복적인 윤회에 대한 이 신념은, 초기 베다의 신념의 한 부분이었던, 죽음 안에서 해방과 영적 전진을 발견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희망을, 투쟁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아갔다.

철학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은, 모든 창조의 대혼(大魂)인 브라만과 절대적인 연합의 평화와 우주적 안식과 평화 속에 잠김으로써 자아로부터 영원한 탈출 교리의 창안이 뒤따랐다. 필사자 욕망과 인간적 야망은 효과적으로 강탈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다. 2,000년이 넘도록, 인도의 더 나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욕망에서 탈피하려고 애썼으며, 그리하여 영적인 절망상태의 고리로 수많은 힌두 민족들의 혼(魂)들을 실질적으로 속박해온 후대의 예배종파들과 가르침들에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모든 문명들 중에서, 베다의 아리안은 살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특권계급 자체만으로는 아리안의 종교-문화적 체계를 영속시킬 수 없었으며, 데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으로 퍼지면서, 절망과 자포자기의 시대가 발전되었다. 생명을 취하지 않는 예배종파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암흑시대 동안이었으며, 그 후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새로운 예배종파들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구원은 아무 도움 없이 사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철학의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과 아담의-가르침들의 왜곡된 잔해들을 추적할 수 있다.

힌두 신앙의 후대 경전들인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편집된 것은 바로 이 시대였다. 유일한 하느님과의 개인적 신앙을 통한 개인적 종교의 가르침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사람모습의-신(神) 사상들과 환생에 대한 데칸으로부터의 타

exalt themselves above even their gods, to relegate to themselves the honors due their gods. But they went so absurdly far with these presumptuous claims that the whole precarious system collapsed before the debasing cults which poured in from the surrounding and less advanced civilizations. The vast Vedic priesthood itself floundered and sank beneath the black flood of inertia and pessimism which their own selfish and unwise presumption had brought upon all India.

94:2.3 (1029.1) The undue concentration on self led certainly to a fear of the nonevolutionary perpetuation of self in an endless round of successive incarnations as man, beast, or weeds. And of all the contaminating beliefs which could have become fastened upon what may have been an emerging monotheism, none was so stultifying as this belief in transmigration — the doctrine of the reincarnation of souls — which came from the Dravidian Deccan. This belief in the weary and monotonous round of repeated transmigrations robbed struggling mortals of their long-cherished hope of finding that deliverance and spiritual advancement in death which had been a part of the earlier Vedic faith.

94:2.4 (1029.2) This philosophically debilitating teaching was soon followed by the invention of the doctrine of the eternal escape from self by submergence in the universal rest and peace of absolute union with Brahman, the oversoul of all creation. Mortal desire and human ambition were effectually ravished and virtually destroyed.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the better minds of India have sought to escape from all desire, and thus was opened wide the door for the entrance of those later cults and teachings which have virtually shackled the souls of many Hindu peoples in the chains of spiritual hopelessness. Of all civilizations, the Vedic-Aryan paid the most terrible price for its rejection of the Salem gospel.

94:2.5 (1029.3) Caste alone could not perpetuate the Aryan religio-cultural system, and as the inferior religions of the Deccan permeated the north, there developed an age of despair and hopelessness. It was during these dark days that the cult of taking no life arose, and it has ever since persisted. Many of the new cults were frankly atheistic, claiming that such salvation as was attainable could come only by man's own unaided efforts. But throughout a great deal of all this unfortunate philosophy, distorted remnants of the Melchizedek and even the Adamic teachings can be traced.

94:2.6 (1029.4) These were the times of the compilation of the later scriptures of the Hindu faith, the Brahmanas and the Upanishads. Having rejected the teachings of personal religion through the personal faith experience with the one God,

락하고 쇠퇴하는 예배종파들의 홍수로 오염되었음으로, 브라만교의 사제들은 이러한 손상되는 믿음들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발을 체험하였다;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으려는 명확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신(神)에 대한 인도사람의 개념을 사람모습 탈피의-신(神)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고상하고 영적인 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대자의 미미하고 형이상학적인 관념, 개인성화 탈피의 통탄할만한 실수로 빠져들었다.

브라만들은 자기-보존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노력들에서 멜기세덱의 한 분의 하느님을 거부하였으며, 이제 그들은 그 불행한 시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력하고 패배적인 인도의 영적 삶을 남겨놓은 미(未)개인적이며 어떤 도움도 없는, 불분명하고 현혹적인 철학적 자아인 브라만의 가설로서의 자아를 발견하였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된 것은 우파니샤드가 작성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것의 천 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대의 힌두교와는 경쟁할 수 없었다; 보다 높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초기 하느님에 대한 묘사는 더 적게 그리고 개인적 신(神)들을 대비한 힌두교의 것보다도 잘 정의(定意)되지 못하였다. 불교는 마침내 우주의 최극 하느님으로 알라의 선명한 개념과 함께 전투적인 이슬람의 맹공격 앞에서 북부 인도 지역을 내어주게 되었다.

제 3 장. 브라만교의 철학

브라만교의 가장 높은 위상은 거의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필사자 마음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 속으로 가장 훌륭하게 도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최종적인 실체의 발견을 위하여 출발하였음으로, 인도인의 마음은 거의 모든 신학적 위상들을 깊은 사색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이원적(二元的) 종교개념은 제외되고 있었다: 모든 우주적 창조체들의 우주 아버지의 실존과 그리고 바로 이 창조체들이, 그가 완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완전해지기를 명령하신 영원한 아버지에게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이라는 사실이다.

브라만의 개념에서 당대의 마음들은 모든 것에-스며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관념을 정말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이 가정(假定)이 한 때 그리고 동시에 창조적인 에너지와 조화우주적인 반응으로 정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모든 정의(定義)를 초월하는 것, 모든 유한적인 본질 특성들에 대한 연속적인 부정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절

and having become contaminated with the flood of debasing and debilitating cults and creeds from the Deccan, with their anthropomorphisms and reincarnations, the Brahmanic priesthood experienced a violent reaction against these vitiating beliefs; there was a definite effort to seek and to find *true reality*. The Brahmins set out to deanthropomorphize the Indian concept of deity, but in so doing they stumbled into the grievous error of depersonalizing the concept of God, and they emerged, not with a lofty and spiritual ideal of the Paradise Father, but with a distant and metaphysical idea of an all-encompassing Absolute.

94:2.7 (1029.5) In their efforts at self-preservation the Brahmins had rejected the one God of Melchizedek, and now they found themselves with the hypothesis of Brahman, that indefinite and illusive philosophic self, that impersonal and impotent *it* which has left the spiritual life of India helpless and prostrate from that unfortunate day to the twentieth century.

94:2.8 (1029.6) It was during the times of the writing of the Upanishads that Buddhism arose in India. But despite its successes of a thousand years, it could not compete with later Hinduism; despite a higher morality, its early portrayal of God was even less well-defined than was that of Hinduism, which provided for lesser and personal deities. Buddhism finally gave way in northern India before the onslaught of a militant Islam with its clear-cut concept of Allah as the supreme God of the universe.

3. BRAHMANIC PHILOSOPHY

94:3.1 (1030.1) While the highest phase of Brahmanism was hardly a religion, it was truly one of the most noble reaches of the mortal mind into the domains of philosophy and metaphysics. Having started out to discover final reality, the Indian mind did not stop until it had speculated about almost every phase of theology excepting the essential dual concept of religion: the existence of the Universal Father of all universe creatures and the fact of the ascending experience in the universe of these very creatures as they seek to attain the eternal Father, who has commanded them to be perfect, even as he is perfect.

94:3.2 (1030.2) In the concept of Brahman the minds of those days truly grasped at the idea of some all-pervading Absolute, for this postulate was at one and the same time identified as creative energy and cosmic reaction. Brahman was conceived to be beyond all definition, capable of being comprehended only by the successive negation of all finite qualities. It was definitely a belief in an absolute, even an infinite, being, but this concept

대적인 존재, 심지어 무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이 개념은 대개 개인성 속성들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교인들에 의하여 체험될 수 없었다.

브라만-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스스로 인 것, 잠재적인 조화우주의 근원적인 창조적 잠재력, 모든 영원 전체에 정적(靜的)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 자아로 이해되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神) 개념에 대한 다음 단계의 진보를 이룩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브라만을 협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창조되고 진화하는 존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개인성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한 가르침이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신(神)에 대한 묘사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의 신(神) 기능의 처음 다섯 가지 차원들을 포함할 수 있었고 나머지 두 가지도 통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위상들에서 모든 창조체 실존의 합친 것의 전체를 하나의 우주 대혼(大魂)이라는 개념이 인도 철학자들을 최극존재에 대한 진리에 매우 가까이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그들에게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브라만-나라야나에 대한 그들의 이론적인 일신교적(一神敎的) 목표 달성에 이르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개인적 접근으로 진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인과관계의 연속성의 업(業)의 원칙은, 최극자의 신(神) 현존에서 모든 시간-공간 활동들의 반향적인 합성의 진리에 매우 근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개별 종교인에 의한 신(神)의 조화-협동적인 개인적 달성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단지 우주적 대혼(大魂)에 의한 모든 개인성의 궁극적 흡수만을 제공하였다.

또한 브라만교의 철학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대한 깨달음에 거의 접근하였지만, 진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통하여 곡해되었다. 우주적 존재의 이 내주와 동떨어져서는 어떠한 인간의 개별존재성도 없다는 신념으로 이 개념이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브라만의 내주가 혼이라는 가르침은 진보된 종교를 낳을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도 있었다.

자아-혼과 대혼(大魂)과의 융합의 교리에서, 인도의 신학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것, 새롭고도 독특한 어떤 것, 사람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의 연합으로 태어난 어떤 것의 생존을 위한 준비에 실패하였다. 혼이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우주 아버지의 품안으로 조절자가 돌아간다는 진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필사자 개인성의 모른시아적 상대자로 생존하는 조절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이 브라만의 철학에는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was largely devoid of personality attributes and was therefore not experiential by individual religionists.

94:3.3 (1030.3) Brahman-Narayana was conceived as the Absolute, the infinite IT IS, the primordial creative potency of the potential cosmos, the Universal Self existing static and potential throughout all eternity. Had the philosophers of those days been able to make the next advance in deity conception, had they been able to conceive of the Brahman as associative and creative, as a personality approachable by created and evolving beings, then might such a teaching have become the most advanced portraiture of Deity on Urantia since it would have encompassed the first five levels of total deity function and might possibly have envisioned the remaining two.

94:3.4 (1030.4) In certain phases the concept of the One Universal Oversoul as the totality of the summation of all creature existence led the Indian philosophers very close to the truth of the Supreme Being, but this truth availed them naught because they failed to evolve any reasonable or rational personal approach to the attainment of their theoretic monotheistic goal of Brahman-Narayana.

94:3.5 (1030.5) The karma principle of causality continuity is, again, very close to the truth of the repercussional synthesis of all time-space actions in the Deity presence of the Supreme; but this postulate never provided for the co-ordinate personal attainment of Deity by the individual religionist, only for the ultimate engulfment of all personality by the Universal Oversoul.

94:3.6 (1030.6) The philosophy of Brahmanism also came very near to the realization of the indwelling of the Thought Adjusters, only to become perverted through the misconception of truth. The teaching that the soul is the indwelling of the Brahman would have paved the way for an advanced religion had not this concept been completely vitiated by the belief that there is no human individuality apart from this indwelling of the Universal One.

94:3.7 (1030.7) In the doctrine of the merging of the self-soul with the Oversoul, the theologians of India failed to provide for the survival of something human, something new and unique, something born of the union of the will of man and the will of God. The teaching of the soul's return to the Brahman is closely parallel to the truth of the Adjuster's return to the bosom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re is something distinct from the Adjuster which also survives, the morontial counterpart of mortal personality. And this vital concept was fatally absent from Brahmanic philosophy.

브라만의 철학은 많은 우주의 사실들에 접근하였고 여러 조화우주 진리에 다가갔지만, 그것은 모두를 절대적, 초월적 그리고 유한한 그러한 실체의 여러 차원들 사이를 차별화하는 데 실패하는 실수에 빠진 희생자로 너무나 자주 만들었다. 절대 차원에서는 유한-착각일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실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진화적 창조체의 제한된 하느님과의 체험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가지는 영원한 아들의 무한한 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우주 아버지의 근본적 개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94:3.8 (1031.1) Brahmanic philosophy has approximated many of the facts of the universe and has approached numerous cosmic truths, but it has all too often fallen victim to the error of failing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several levels of reality, such as absolute, transcendental, and finite. It ha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that what may be finite-illusory on the absolute level may be absolutely real on the finite level. And it has also taken no cognizance of the essential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who is personally contactable on all levels from the evolutionary creature's limited experience with God on up to the limitless experience of the Eternal Son with the Paradise Father.

제 4 장. 힌두교

인도에서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 변경되었고 후대의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던 베다의 고대 예식으로 다소 되돌아갔다. 세계의 종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주의적인 이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에 의해 그리고 후대에 나타난 마호멧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에 의해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도착할 무렵에, 그것들은 이미 너무 서구화 되어 “백인들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힌두인 마음에는 생소하고 이국적인 것으로 되었다.

현재의 힌두 신학은 신(神)과 신성에 대해 네 개의 하향식 차원들을 묘사하고 있다.

1.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자, 스스로인 것.

2. 삼신일체(三神一體), 힌두교의 최극 삼위일체. 이 관계적-연합에서 첫 번째 위(位)인 브라만은 브라만—무한—에서 자아-창조된 존재로 이해된다. 그것이 범신주의적 무한한 자와 가까운 정체화현이 아니었다면, 우주 아버지의 개념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브라만은 숙명파도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위(位)에 해당하는 시바와 비슈누에 대한 경배는 그리스도 이후 첫 번째 1,000년에 생겨났다. 시바는 생사의 주인이고, 풍요의 하느님이며, 파괴의 주인이다. 비슈누는 그가 주기적으로 인간의 형태로 육신화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대중적이다. 이 방법으로 비슈누는 인도인들의 상상들 속에서 실체적이고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바와 비슈누 각각을 모든 것보다 뛰어난 최극으로 간주한다.

3. 베다와 베다-이후의 신(神). 양니, 인드라, 소마 등과 같은 아리안의 많은 고대(古代) 하느님은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세 구성원의 2차적 존재로 존속하였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여러 하느님

4. THE HINDU RELIGION

94:4.1 (1031.2) With the passing of the centuries in India, the populace returned in measure to the ancient rituals of the Vedas as they had been modified by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crystallized by the later Brahman priesthood. This, the oldest and most cosmopolitan of the world's religions, has undergone further changes in response to Buddhism and Jainism and to the later appearing influences of Mohammedanism and Christianity. But by the time the teachings of Jesus arrived, they had already become so Occidentalized as to be a “white man's religion,” hence strange and foreign to the Hindu mind.

94:4.2 (1031.3) Hindu theology, at present, depicts four descending levels of deity and divinity:

94:4.3 (1031.4) 1. *The Brahman*, the Absolute, the Infinite One, the IT IS.

94:4.4 (1031.5) 2. *The Trimurti*, the supreme trinity of Hinduism. In this association *Brahma*, the first member, is conceived as being self-created out of the Brahman — infinity. Were it not for close identification with the pantheistic Infinite One, Brahma could constitute the foundation for a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Brahma is also identified with fate.

94:4.5 (1031.6) The worship of the second and third members, Siva and Vishnu, arose in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Siva* is lord of life and death, god of fertility, and master of destruction. *Vishnu* is extremely popular due to the belief that he periodically incarnates in human form. In this way, Vishnu becomes real and living in the imaginations of the Indians. Siva and Vishnu are each regarded by some as supreme over all.

94:4.6 (1031.7) 3. *Vedic and post-Vedic deities*. Many of the ancient gods of the Aryans, such as Agni, Indra, Soma, have persisted as secondary to the three members of the Trimurti. Numerous

들은 베다 인도의 초기 시대부터 계속 형성되었고, 이것들도 힌두 만신(萬神)으로 결합되었다.

4. 반신반인(半神半人)들: 초인간들, 반신(半神)들, 영웅들, 마귀들, 귀신들, 악한 영들, 요정들, 괴물들, 악귀들, 그리고 후대 예배종파들의 성자(聖子)들.

힌두교는 인도 민족에게 생기를 주는 일에 오랫동안 실패해 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관용의 종교였다. 그 종교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유란시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응력이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종교로 판명된 사실에 있다. 종교는 거의 무제한적인 변화의 능력과, 지적인 브라만의 높고 그리고 거의 일신교적(一神敎的)인 깊은 사색들로부터 무지한 신자들의 타락하고 억압된 등급들의 터무니없는 몰신 숭배와 원시적인 예배종파의 실천 관행들에 이르기까지 드문 범주의 유연한 조절을 소유하고 있다.

힌두교는 그것이 인도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본질적으로 집대성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다. 그 종교에는 교란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큰 계급 제도가 없었다; 민족의 생활형태 속에 짜여 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모든 예배종파들을 능가하는 적응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여러 종교들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고타마 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그 자신도 역시 환생한 비쉬누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인도에서 매우 필요한 것은 예수 공동체의 복음—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랑하는 사명활동과 사회적인 봉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사람들의 아들 신분과 그리고 결과적인 형제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인도에는 철학적 틀이 실존하고 있고, 예배종파 체제가 현존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기원적인 복음 속에 묘사된 역동적인 사랑의 활력을 부여하는, 미가엘의 증여 삶을 백인들의 종교로 만들려고 해왔던 서방의 독단론들과 신조들의 옷을 벗겨낸, 활력의 불꽃이다.

제 5 장. 중국에서의 진리를 위한 투쟁

살렘 선교사들이 지고자 하느님의 교리와 신앙을 통한 구원을 전파하면서 아시아를 지나갈 때, 그들은 통과하는 여러 지역들의 철학적 종교적 생각들을 많이 흡수하였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의해 임명된 선생들과 그의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에서 불이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민족들 속으로 퍼져 들어갔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1,500년경이었다. 살렘 사람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 후시에 자기들의 본부를 유지하였으며, 그곳에서 황색 인종의 모든 지역 사람들을 가르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다.

additional gods have arisen since the early days of Vedic India, and these have also been incorporated into the Hindu pantheon.

94:4.7 (1031.8)

4. *The demigods*: supermen, semigods, heroes, demons, ghosts, evil spirits, sprites, monsters, goblins, and saints of the later-day cults.

94:4.8 (1031.9)

While Hinduism has long failed to vivify the Indian people, at the same time it has usually been a tolerant religion. Its great strength lies in the fact that it has proved to be the most adaptive, amorphous religion to appear on Urantia. It is capable of almost unlimited change and possesses an unusual range of flexible adjustment from the high and semimontheistic speculations of the intellectual Brahman to the arrant fetishism and primitive cult practices of the debased and depressed classes of ignorant believers.

94:4.9 (1032.1)

Hinduism has survived because it is essentially an integral part of the basic social fabric of India. It has no great hierarchy which can be disturbed or destroyed; it is interwoven into the life pattern of the people. It has an adaptability to changing conditions that excels all other cults, and it displays a tolerant attitude of adoption toward many other religions, Gautama Buddha and even Christ himself being claimed as incarnations of Vishnu.

94:4.10 (1032.2)

Today, in India, the great need is for the portrayal of the Jesusonian gospel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and consequent brotherhood of all men, which is personally realized in loving ministry and social service. In India the philosophical framework is existent, the cult structure is present; all that is needed is the vitalizing spark of the dynamic love portrayed in the original gospel of the Son of Man, divested of the Occidental dogmas and doctrines which have tended to make Michael's life bestowal a white man's religion.

5. THE STRUGGLE FOR TRUTH IN CHINA

94:5.1 (1032.3)

As the Salem missionaries passed through Asia, spreading the doctrine of the Most High God and salvation through faith, they absorbed much of the philosophy and religious thought of the various countries traversed. But the teachers commissioned by Melchizedek and his successors did not default in their trust; they did penetrate to all peoples of the Eurasian continent, and it was in the middle of the second millennium before Christ that they arrived in China. At See Fuch,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the Salemites maintained their headquarters, there training Chinese teachers who taught throughout all the domains of the yellow race.

오늘날 명명된 것과는 매우 다른 종교인 초기 형태의 도교(道敎)가 중국에서 발생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초기 또는 원시 형태의 도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합성 이었다:

1. 하늘의 하느님인 상제(上帝)의 개념 속에 남아 있었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싱랑톤의 가르침들. 싱랑톤의 시대에는 중국 민족이 실질적으로 유일신(唯一神)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나중에 하늘의 영, 우주의 통치자로 알려진 한 분 진리자(真理者)에 그들의 경배를 집중하였다. 그리고 황색 인종은,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많은 하급의 하느님들과 영들의 개념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교활하게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神)에 대한 이 초기 개념을 전부 잃어버린 적이 결코 없었다.

2.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증여하는, 지고자 창조자 신(神)의 살렘 종교.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황색 인종의 지역으로 들어갔을 무렵에, 그들의 기원적 메시지가 마키벤타 시대에 살렘의 단순한 교리로부터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 모든 악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갈망과 연결된, 인도 철학자들의 브라만-절대자 개념. 살렘 종교가 동쪽으로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외부적 영향은 아마 브라만-절대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상 속으로 주입시켰던 베딕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에 의해 발휘되었을 것이다.

복합적인 이 신념은 황색인종과 갈색인종 지역에 퍼져나가서 종교적-철학적 생각 밀바탕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원시적-도교가 신교로 알려졌고, 팔레스타인의 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인류에 의해서 잊히지 않도록 이 세상에 거주 하였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육신화에 대해 배웠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신앙들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계속 자라나는 조상숭배의 예배종파와 혼동되고 혼합되었다. 그러나 싱랑톤의 시대 이후로 중국인들이 성직자 제도에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이 노예로 추락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황색 인종은 야만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체계 있는 문명으로 발전된 최초의 인종이었다. 왜냐하면 최초로 하느님들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으로부터 처음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성취하고, 다른 종족은 두려워하던 그러한 죽은 자의 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패배하게 된 것은 초기에 있었던 사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서 발전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거의 마찬가지로 비참한 실수, 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살렘 사람들의 활동이 무익한 것은 아니었다. 6세기경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들을 수립한 것은 그들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였다. 노자(老子)와 공자(孔子) 시대의

94:5.2 (1032.4) It was in direct consequence of this teaching that the earliest form of Taoism arose in China, a vastly different religion than the one which bears that name today. Early or proto-Taoism was a compound of the following factors:

94:5.3 (1032.5) 1. The lingering teachings of Singlangton, which persisted in the concept of Shang-ti, the God of Heaven. In the times of Singlangton the Chinese people became virtually monotheistic; they concentrated their worship on the One Truth, later known as the Spirit of Heaven, the universe ruler. And the yellow race never fully lost this early concept of Deity, although in subsequent centuries many subordinate gods and spirits insidiously crept into their religion.

94:5.4 (1032.6) 2. The Salem religion of a Most High Creator Deity who would bestow his favor upon mankind in response to man's faith. But it is all too true that, by the time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had penetrated to the lands of the yellow race, their original message had become considerably changed from the simple doctrines of Salem in the days of Machiventa.

94:5.5 (1032.7) 3. The Brahman-Absolute concept of the Indian philosophers, coupled with the desire to escape all evil. Perhaps the greatest extraneous influence in the eastward spread of the Salem religion was exerted by the Indian teachers of the Vedic faith, who injected their conception of the Brahman — the Absolute — into the salvationistic thought of the Salemites.

94:5.6 (1033.1) This composite belief spread through the lands of the yellow and brown races as an underlying influence in religio-philosophic thought. In Japan this proto-Taoism was known as Shinto, and in this country, far-distant from Salem of Palestine, the peoples learned of the incarnation of Machiventa Melchizedek, who dwelt upon earth that the name of God might not be forgotten by mankind.

94:5.7 (1033.2) In China all of these beliefs were later confused and compounded with the ever-growing cult of ancestor worship. But never since the time of Singlangton have the Chinese fallen into helpless slavery to priestcraft. The yellow race was the first to emerge from barbaric bondage into orderly civilization because it was the first to achieve some measure of freedom from the abject fear of the gods, not even fearing the ghosts of the dead as other races feared them. China met her defeat because she failed to progress beyond her early emancipation from priests; she fell into an almost equally calamitous error, the worship of ancestors.

94:5.8 (1033.3) But the Salemites did not labor in vain. It was upon the foundations of their gospel that the great philosophers of sixth-century China built their teachings. The moral atmosphere and the spiritual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정서는 그 이전 시대의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생되었다.

sentiments of the times of Lao-tse and Confucius grew up out of the teachings of the Salem missionaries of an earlier age.

제 6 장. 노자와 공자

6. LAO-TSE AND CONFUCIUS

미가엘이 도착하기보다 약 600년 전에, 육신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된 멜기세덱에게는, 유란시아의 옛 신앙들 속으로 전반적으로 흡수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의 순수성이 심히 위태롭게 된 것처럼 보였다. 미가엘의 선구자로서 그의 임무가 한동안 위험에 처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에, 영적 대리자들의 비상한 조화-협동을 통하여 유란시아에는 다양한 종교적 진리의 가장 비상한 제시가 있었으며, 행성 감독자들도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 인간 선생들인 대리자를 통하여 살렘의 복음이 다시 규정되고 소생되었으며, 그 당시에 제시된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기록이 쓰일 때까지도 계속 존속되었다.

94:6.1 (1033.4) About six hundred years before the arrival of Michael, it seemed to Melchizedek, long since departed from the flesh, that the purity of his teaching on earth was being unduly jeopardized by general absorption into the older Urantia beliefs. It appeared for a time that his mission as a forerunner of Michael might be in danger of failing. And in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hrough an unusual co-ordination of spiritual agencies, not all of which are understood even by the planetary supervisors, Urantia witnessed a most unusual presentation of manifold religious truth. Through the agency of several human teachers the Salem gospel was restated and revitalized, and as it was then presented, much has persisted to the times of this writing.

영적인 진보의 이 독특한 시대는 모든 문명화된 세계에 위대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선생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중국에서의 두 사람의 유명한 선생들은 노자(老子)와 공자(孔子)이었다.

94:6.2 (1033.5) This unique century of spiritual progress was characterized by great religious, moral, and philosophic teachers all over the civilized world. In China, the two outstanding teachers were Lao-tse and Confucius.

노자는 모든 창조에 대한 첫째원인 하나로 도(道)를 천명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살렘 전통들의 개념 위에 기초를 두었다. 노자는 위대한 영적 시야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도(道), 최고 하느님 그리고 우주의 왕과 영영토록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궁극적인 원인성에 대한 그의 이해는 가장 통찰력 있는 것이었으니 이로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절대적 도(道)에서 합일이 일어나 나오고, 합일로부터 조화우주적 이원성(二元性)이 나타나며, 그러한 이원성으로부터 삼위일체가 실존으로서 솟아 오르고, 삼위일체는 모든 실체의 시원(始原)적 근원이다.” “모든 실체는 조화우주의 잠재자들과 실체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신성의 영에 의해서 영원토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

94:6.3 (1033.6) Lao-tse built directly upon the concepts of the Salem traditions when he declared Tao to be the One First Cause of all creation. Lao was a man of great spiritual vision. He taught that man's eternal destiny was “everlasting union with Tao, Supreme God and Universal King.” His comprehension of ultimate causation was most discerning, for he wrote: “Unity arises out of the Absolute Tao, and from Unity there appears cosmic Duality, and from such Duality, Trinity springs forth into existence, and Trinity is the primal source of all reality.” “All reality is ever in balance between the potentials and the actuals of the cosmos, and these are eternally harmonized by the spirit of divinity.”

또한 노자는 악을 선으로 낳는다는 가장 처음 제시된 교리 중의 하나를 발표하였다: “선(善)이 선을 얻게 하지만,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는 악도 선을 얻게 한다.”

94:6.4 (1033.7) Lao-tse also made one of the earliest presentations of the doctrine of returning good for evil: “Goodness begets goodness, but to the one who is truly good, evil also begets goodness.”

그는 창조체가 창조자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쳤으며, 생명을 조화우주적인 잠재로부터의 개인성 창발로 묘사한 반면, 죽음은 이 창조체 개인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참된 신앙에 대한 그의 개념은 무위(無爲)였으며, “어린아이의 태도”에 자주 비유하였다.

94:6.5 (1033.8) He taught the return of the creature to the Creator and pictured life as the emergence of a personality from the cosmic potentials, while death was like the returning home of this creature personality. His concept of true faith was unusual, and he too likened it to the “attitude of a little child.”

하느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한 그의 납득은 매우 분명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절대자 신(神)은 분투하지는 않지만, 항상 승리한다; 그는 인류를 강제하지 않지만 그들의 참된 간구에

94:6.6 (1034.1) His understanding of the eternal purpose of God was clear, for he said: “The Absolute Deity does not strive but is always victorious; he does not coerce mankind but always

대해서 응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은 영원토록 인내하는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영원토록 필연적이다.” 그리고 참된 종교인에 대하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진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한 사람은 진리를 자기 혼자서만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산들을 자기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느님의 뜻은 항상 유익을 주고 파괴시키지 않는다; 참된 신자(信者)의 목적은 항상 행동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무저항에 대한 노자의 가르침과, 행동 및 강요 사이에 대한 구분이 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며 행하며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신념들로 곡해되었다. 그러나 노자는 그 같은 실수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항에 대한 그의 제시는 중국 사람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더욱 발전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유란시아의 대중적인 도교는 옛날의 철학자가 그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쳤던 조화우주적 개념과 고상한 정서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은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도, 우주들의 영원한 신(神)이자 창조자 절대자와, 영적 연합으로 상승한다.

공자(공 후-쯔)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보다 젊은 사람이었다. 공자는 그의 신조를 황인종의 오랜 역사에서의 좀더 나은 도덕적 전통에 기초를 두었으며, 또한 남아 있는 살렘 선교사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된 일들은 옛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편찬하는 것에 있었다.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거부 받은 선생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문서들과 가르침들은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이 있던 자리에 도덕을 올려 놓음으로써 무당들에게 새로운 길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잘 세웠다; 그는 계층을 그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물로 만들어 내었고, 조상의 행위를 존경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글을 쓸 때에도 중국인들에 의해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숭배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공자의 설교는, 이 세상의 도(道)가 하늘의 도(道)의 왜곡된 그림자라는 것; 현재 문명의 참된 원형들은 하늘의 영원한 계층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유교(儒敎)에 있는 잠재적 하느님 개념은 하늘의 도(道), 곧 조화우주의 원형들에 거의 완벽하게 종속되었다.

노자의 가르침은 동양에서 소수만 남겨놓고 모두에게서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공자의 글들은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인의 거의 3분의 1의 사람들의 문화에서 도덕적 짜임새의 기초를 이루었다.

stands ready to respond to their true desires; the will of God is eternal in patience and eternal in the inevitability of its expression.” And of the true religionist he said, in expressing the truth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The good man seeks not to retain truth for himself but rather attempts to bestow these riches upon his fellows, for that is the realization of truth. The will of the Absolute God always benefits, never destroys; the purpose of the true believer is always to act but never to coerce.”

94:6.7 (1034.2) Lao's teaching of nonresistance and the distinction which he made between *action* and *coercion* became later perverted into the beliefs of “seeing, doing, and thinking nothing.” But Lao never taught such error, albeit his presentation of nonresistance has been a factor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acific predilections of the Chinese peoples.

94:6.8 (1034.3) But the popular Taoism of twentieth-century Urantia has very little in common with the lofty sentiments and the cosmic concepts of the old philosopher who taught the truth as he perceived it, which was: That faith in the Absolute God is the source of that divine energy which will remake the world, and by which man ascends to spiritual union with Tao, the Eternal Deity and Creator Absolute of the universes.

94:6.9 (1034.4) *Confucius* (Kung Fu-tze) was a younger contemporary of Lao in sixth-century China. Confucius based his doctrines upon the better moral traditions of the long history of the yellow race, and he was also somewhat influenced by the lingering traditions of the Salem missionaries. His chief work consisted in the compilation of the wise sayings of ancient philosophers. He was a rejected teacher during his lifetime, but his writings and teachings have ever since exerted a great influence in China and Japan. Confucius set a new pace for the shamans in that he put morality in the place of magic. But he built too well; he made a new fetish out of *order* and established a respect for ancestral conduct that is still venerated by the Chinese at the time of this writing.

94:6.10 (1034.5) The Confucian preachment of morality was predicated on the theory that the earthly way is the distorted shadow of the heavenly way; that the true pattern of temporal civilization is the mirror reflection of the eternal order of heaven. The potential God concept in Confucianism was almost completely subordinated to the emphasis placed upon the Way of Heaven, the pattern of the cosmos.

94:6.11 (1034.6) The teachings of Lao have been lost to all but a few in the Orient, but the writings of Confucius have ever since constituted the basis of the moral fabric of the culture of almost a third of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들은 과거의 가장 좋은 것을 영속시키고 있지만, 그토록 숭배받을 업적들을 낳았던 바로 그 중국인의 탐사하는 영에 다소간 해로운 것이었다. 이들 신조들의 영향은 진시황제 황실의 노력과 묵자(墨者)의 가르침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으나, 성과없는 싸움이였다. 묵자(墨者)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형제관계를 부르짖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찾던 예전의 탐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썼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역센 반대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수많은 다른 영적 및 도덕적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공자와 노자 역시 인도로부터 온 불교 선교사들의 도래와 도교 신앙의 쇠퇴 및 타락 사이에 있었던 중국의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의해 결국에는 신화(神化)되었다. 이러한 영적 퇴폐기 동안 황색 인종의 종교는 악마들, 용들, 그리고 악한 영들, 모두 깨우치지 못한 필사자 마음의 반사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들로 가득 찬 비참한 신학 체계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한 때 진보된 종교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의 우위를 차지하였던 중국은 그 후에, 개별 필사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행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를 특징짓는 복잡하고도 복합적인 문명들의 참된 진보에 필수 불가결한 하느님-의식 개발의 참된 경로에서 발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다.

제 7 장. 고타마 싯타르타

중국에서 노자와 공자가 활동하던 동시대에, 진리의 위대한 다른 선생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고타마 싯타르타는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인도 북부 지방의 네팔에서 태어났다.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가 엄청나게 부유한 통치자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부 히말라야의 협소하고도 외진 산악 계곡을 힘들게 다스리는 소규모 족장의 후계자였다.

고타마는 쓸모없는 요가 실천 연습을 6년 동안 한 후에, 불교 철학으로 발전되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싯타르타는 점점 왕성해지는 특권계급 계도에 대항하여 단호하지만 그러나 효과가 없는 투쟁을 하였다. 이 젊은 예언자 왕자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크게 호감을 샀던 고상한 성실성과 독특한 사심-없음이 있었다. 그는 물리적 고통과 개인적 고뇌를 통하여 각자의 구원을 추구하는 실천 연습으로부터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권고하였다.

Urantians. These Confucian precepts, while perpetuating the best of the past, were somewhat inimical to the very Chinese spirit of investigation that had produced those achievements which were so venerated. The influence of these doctrines was unsuccessfully combated both by the imperial efforts of Ch'in Shih Huang Ti and by the teachings of Mo Ti, who proclaimed a brotherhood founded not on ethical duty but on the love of God. He sought to rekindle the ancient quest for new truth, but his teachings failed before the vigorous opposition of the disciples of Confucius.

94:6.12 (1034.7) Like many other spiritual and moral teachers, both Confucius and Lao-tse were eventually deified by their followers in those spiritually dark ages of China which intervened between the decline and perversion of the Taoist faith and the coming of the Buddhist missionaries from India. During these spiritually decadent centuries the religion of the yellow race degenerated into a pitiful theology wherein swarmed devils, dragons, and evil spirits, all betokening the returning fears of the unenlightened mortal mind. And China, once at the head of human society because of an advanced religion, then fell behind because of temporary failure to progress in the true path of the development of that God-consciousness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true progress, not only of the individual mortal, but also of the intricate and complex civilizations which characterize the advance of culture and society on an evolutionary planet of time and space.

7. GAUTAMA SIDDHARTHA

94:7.1 (1035.1) Contemporary with Lao-tse and Confucius in China, another great teacher of truth arose in India. Gautama Siddhartha was born in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in the north Indian province of Nepal. His followers later made it appear that he was the son of a fabulously wealthy ruler, but, in truth, he was the heir apparent to the throne of a petty chieftain who ruled by sufferance over a small and secluded mountain valley in the southern Himalayas.

94:7.2 (1035.2) Gautama formulated those theories which grew into the philosophy of Buddhism after six years of the futile practice of Yoga. Siddhartha made a determined but unavailing fight against the growing caste system. There was a lofty sincerity and a unique unselfishness about this young prophet prince that greatly appealed to the men of those days. He detracted from the practice of seeking individual salvation through physical affliction and personal pain. And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carry his gospel to all the world.

인도에서 혼란되고 극단적인 예배종파와 실천 관행들 속에서, 보다 온전하고 절도 있는 고타마의 가르침이 참신한 구원으로 다가왔다. 그는 신(神)들, 사제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고발하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의 우주 존재의 개인성을 깨닫는데 실패하였다. 고타마는 개별적인 인간 혼들의 실존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윤회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에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움으로부터 구해내고, 거대한 우주에서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고귀한 노력을 하였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실제적인 하늘의 집—파라다이스—에 도달하는 길과 영원한 실존의 확대되는 봉사 업무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고타마는 실제적인 선지자였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은둔자 고다드의 가르침에 주의하였다면, 신앙에 의한 구원의 살렘 복음의 회복의 영감(靈感)에 의해서 인도 전체를 깨우칠 수도 있었다. 고다드는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전통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가문을 이은 사람이었다.

고타마는 베나레스에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관하여 살렘 선교사들이 전한 전통들을 배우탄이라는 학생이 자기 스승에게 전해 주었다; 싯다르타는 우주 아버지에 관하여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갖지 못한 반면, 신앙—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진보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60명의 집단으로 나누어 내보내기 시작함으로써 “자유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

고타마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으며 여승들 체제의 설립자였다.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었고, 예배종파를 크게 확장시켰다; 그는 신앙을 통한 구원의 새로운 관념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말년에 가서 그는 오직 신앙만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살렘 복음에 흔들렸고, 늙어서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 자신만의 구원을 해결하라.”고 말하였다.

가장 좋았을 때 선포된, 고타마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 곧 희생제물, 고통, 종교예식. 그리고 사제들로부터의 자유로움은 그 당시에 혁명적이고도 놀라운 교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살렘 복음이 회복되는 상태에 가까웠다. 그것은 절망하는 수백만의 혼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고, 나중에 여러 세기에 걸친 피상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인간 존재들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싯다르타는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현대 예배종파들 속에 잔존해 온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현대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가르침이 더 이상 아니다.

94:7.3 (1035.3) Amid the confusion and extreme cult practices of India, the saner and more moderate teachings of Gautama came as a refreshing relief. He denounced gods, priests, and their sacrifices, but he too failed to perceive the *personality* of the One Universal. Not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individual human souls, Gautama, of course, made a valiant fight against the time-honored belief in transmigration of the soul. He made a noble effort to deliver men from fear, to make them feel at ease and at home in the great universe, but he failed to show them the pathway to that real and supernal home of ascending mortals — Paradise — and to the expanding service of eternal existence.

94:7.4 (1035.4) Gautama was a real prophet, and had he heeded the instruction of the hermit Godad, he might have aroused all India by the inspiration of the revival of the Salem gospel of salvation by faith. Godad was descended through a family that had never lost the tradition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94:7.5 (1035.5) At Benares Gautama founded his school, and it was during its second year that a pupil, Bautan, imparted to his teacher the traditions of the Salem missionaries about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Abraham; and while Siddhartha did not have a very clear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he took an advanced stand on salvation through faith — simple belief. He so declared himself before his followers and began sending his students out in groups of sixty to proclaim to the people of India “the glad tidings of free salvation; that all men, high and low, can attain bliss by faith in righteousness and justice.”

94:7.6 (1035.6) Gautama's wife believed her husband's gospel and was the founder of an order of nuns. His son became his successor and greatly extended the cult; he grasped the new idea of salvation through faith but in his later years wavered regarding the Salem gospel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alone, and in his old age his dying words wer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94:7.7 (1036.1) When proclaimed at its best, Gautama's gospel of universal salvation, free from sacrifice, torture, ritual, and priests, was a revolutionary and amazing doctrine for its time. And it came surprisingly near to being a revival of the Salem gospel. It brought succor to millions of despairing souls, and notwithstanding its grotesque perversion during later centuries, it still persists as the hope of millions of human beings.

94:7.8 (1036.2) Siddhartha taught far more truth than has survived in the modern cults bearing his name. Modern Buddhism is no more the teachings of Gautama Siddhartha than is Christianity th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제 8 장. 불교 신앙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귀의(歸依)의 말을 낭송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부처 안에 귀의하며; 교리 안에 귀의하며; 형제관계 안에 귀의합니다.”

불교는 신화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에서 기원되었다. 고타마의 추종자들은 그를 사스타라고 불렀는데, 주인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런 초인간적 주장을 하지 않은 반면, 그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그를 부처, 깨우친 자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라고 불렀다.

고타마의 기원적 복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고상한 진리들을 기초로 하였다:

1. 고난의 고상한 진리들.
2. 고난의 기원들.
3. 고난 극복.
4.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고난에 대한 교리와 그것으로부터의 도피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팔정도(八正道) 철학이 있었다: 올바른 식견, 사유, 말, 행위, 생활습관, 정진, 마음챙김, 그리고 깊은 사색이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갈망과 애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고타마의 뜻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현세적인 목표들과 물질적인 대상들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필사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피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신자(信者)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이 세상의 관계들을 뛰어 넘어서 영원한 미래의 실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고타마가 설파한 도덕적 계명들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1. 살인하지 마라.
2. 도둑질하지 마라.
3. 음란하지 마라.
4. 거짓말하지 마라.
5.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마라.

계율의 이행이 신자들의 선택에 달린 몇 가지 부가적인 또는 이차적(二次的)인 계명들도 있었다.

싯타르타는 인간 개인성의 불멸을 거의 믿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오직 일종의 기능적 계속성만을 준비하였다. 그는 열반(涅槃) 교리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던 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었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동안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8. THE BUDDHIST FAITH

94:8.1 (1036.3) To become a Buddhist, one merely made public profession of the faith by reciting the Refuge: “I take my refuge in the Buddha; I take my refuge in the Doctrine; I take my refuge in the Brotherhood.”

94:8.2 (1036.4) Buddhism took origin in a historic person, not in a myth. Gautama's followers called him Sasta, meaning master or teacher. While he made no superhuman claims for either himself or his teachings, his disciples early began to call him *the enlightened one*, the Buddha; later on, Sakyamuni Buddha.

94:8.3 (1036.5) The original gospel of Gautama was based on the four noble truths:

94:8.4 (1036.6) 1. The noble truths of suffering.

94:8.5 (1036.7) 2. The origins of suffering.

94:8.6 (1036.8) 3. The destruction of suffering.

94:8.7 (1036.9) 4. The way to the destruction of suffering.

94:8.8 (1036.10) Closely linked to the doctrine of suffering and the escape therefrom was the philosophy of the Eightfold Path: right views, aspirations, speech, conduct, livelihood, effort, mindfulness, and contemplation. It was not Gautama's intention to attempt to destroy all effort, desire, and affection in the escape from suffering; rather was his teaching designed to picture to mortal man the futility of pinning all hope and aspirations entirely on temporal goals and material objectives. It was not so much that love of one's fellows should be shunned as that the true believer should also look beyond the associations of this material world to the realities of the eternal future.

94:8.9 (1036.11) The moral commandments of Gautama's preachment were five in number:

94:8.10 (1036.12) 1. You shall not kill.

94:8.11 (1036.13) 2. You shall not steal.

94:8.12 (1036.14) 3. You shall not be unchaste.

94:8.13 (1036.15) 4. You shall not lie.

94:8.14 (1036.16) 5. You shall not drink intoxicating liquors.

94:8.15 (1036.17) There were several additional or secondary commandments, whose observance was optional with believers.

94:8.16 (1036.18) Siddhartha hardly believed in the immortality of the human personality; his philosophy only provided for a sort of functional continuity. He never clearly defined what he meant to include in the doctrine of Nirvana. The fact that it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멸절의 상태로 통찰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을 물질세계에 붙들어 매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파괴된 최극의 깨우침과 숭고한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곳에는 필사자 삶의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다시 육신화를 체험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었다.

고타마의 기원적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은 신성한 도움과는 별개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초인간적인 힘의 존재들에게 하는 기도 또는 구원을 얻는 신앙의 여지가 없다. 고타마는 인도의 미신들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신비한 구원에 대한 노골적인 주장들로부터 사람이 멀어지게 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달성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든 분투가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의 추종자들은 최고의 행복이 가치 있는 목표들을 지능적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성취가 조화우주적인 자아-실현 속에서 참된 진보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

싯타르타의 가르침에서 위대한 진리는 절대적 공의(公義)의 우주를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필사 사람이 일찍이 발명한 신(神)이 없는 철학 중에서 가장 최선인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이상적인 인본주의였으며, 미신과 신비 예식 그리고 귀신들과 마귀들에 대한 두려움의 모든 근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불교의 기원적 복음의 가장 큰 약점은 그것이 사심-없는 사회봉사의 종교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오랫동안, 불교의 형제신분은 신자들의 형제우애관계라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이자 선생들의 공동체였다. 고타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그렇게 하여 계급적인 경향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고타마 자신은 매우 사교적이었다; 그의 삶이 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다.

제 9 장. 불교의 전파

불교는 깨우친 자인 부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번영하였다. 그것은 동부 아시아 전체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교 체계보다 가장 많이 맹기세택을 대변한다. 그러나 불교는 맹기세택과 미가엘 사이에서 이집트의 이크나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시민 통치자들 중의 하나였던 하위-특권계급 군주(君主) 아소카에 의해 자아-보호 수단으로 지지될 때까지 종교로 퍼져나가지 못하였다. 아소카는 자신의 불교 선교사들을 퍼뜨림으로써 위대한 인도 제국을 건설하였다. 25년 동안 그는 17,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훈련시켰고, 알려진 모든 세계의 가장 먼 국경들로 보냈다. 한 세대에 그는 불교를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는 종교로 만들었

could theoretically be experienced during mortal existence would indicate that it was not viewed as a state of complete annihilation. It implied a condition of supreme enlightenment and supernal bliss wherein all fetters binding man to the material world had been broken; there was freedom from the desires of mortal life and deliverance from all danger of ever again experiencing incarnation.

94:8.17 (1037.1) According to the original teachings of Gautama, salvation is achieved by human effort, apart from divine help; there is no place for saving faith or prayers to superhuman powers. Gautama, in his attempt to minimize the superstitions of India, endeavored to turn men away from the blatant claims of magical salvation. And in making this effort, he left the door wide open for his successors to misinterpret his teaching and to proclaim that all human striving for attainment is distasteful and painful. His follower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highest happiness is linked with the intelligent and enthusiastic pursuit of worthy goals, and that such achievements constitute true progress in cosmic self-realization.

94:8.18 (1037.2) The great truth of Siddhartha's teaching was his proclamation of a universe of absolute justice. He taught the best godless philosophy ever invented by mortal man; it was the ideal humanism and most effectively removed all grounds for superstition, magical rituals, and fear of ghosts or demons.

94:8.19 (1037.3) The great weakness in the original gospel of Buddhism was that it did not produce a religion of unselfish social service. The Buddhistic brotherhood was, for a long time, not a fraternity of believers but rather a community of student teachers. Gautama forbade their receiving money and thereby sought to prevent the growth of hierarchal tendencies. Gautama himself was highly social; indeed, his life was much greater than his preachment.

9. THE SPREAD OF BUDDHISM

94:9.1 (1037.4) Buddhism prospered because it offered salvation through belief in the Buddha, the enlightened one. It was more representative of the Melchizedek truths than any other religious system to be found throughout eastern Asia. But Buddhism did not become widespread as a religion until it was espoused in self-protection by the low-caste monarch Asoka, who, next to Ikhnaton in Egyp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civil rulers between Melchizedek and Michael. Asoka built a great Indian empire through the propaganda of his Buddhist missionaries. During a period of twenty-five years he trained and sent forth more than seventeen thousand

다. 그것은 곧 티베트, 카슈미르, 실론, 버마, 자바, 시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것은 그것이 대체한 또는 증진시킨 그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종교였다.

불교가 인도의 원산지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진지한 종교인들의 영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선교에 대한 장렬한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고타마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들 신앙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하면서, 육로의 카라반 통로에서 당하는 위험을 담대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해(中國海)에서의 위험에도 용감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 불교는 고타마의 단순한 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 그를 하느님으로 만든, 신비화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불교가 원산지인 인도로부터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고타마의 가르침과는 더욱 더 멀어졌고, 그것은 자신이 대신한 종교와 점점 더 닮아갔다.

불교는 후대에 이르게 되자 중국에서는 도교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신교에 의해서,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만 시들고 소멸되었다. 그것은 브라만화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슬람교에 비굴하게 굴복하였지만, 반면에 동방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전혀 알지 못하였을 제례적(祭禮的)인 것으로 타락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싯다르타의 전형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이 실론과 버마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계속 존재하였다. 이것이 초기 또는 반(反)사회적 교리를 따르는 불교의 하이 나야나 분파이다.

그러나 인도에서 붕괴되기 전에도, 하이 나야나 또는 “소승(小乘)”을 지지하는 남부의 순수파들과는 대조적으로, 고타마를 따르는 중국인들과 북부 인도인들의 집단들이 구원에 있어서 “대승(大乘)”을 따르는 마하야나 가르침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하야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불교 교리에 전혀 내려오는 사회적 제한성을 벗어났으며, 불교의 이 북부 분파는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서 진화되었다.

불교는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자라나는 종교인데, 왜냐하면 그것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온과 자아-통제를 증진시키고, 침착함과 행복을 증강시키며, 많은 슬픔과 비탄을 막아준다. 이 철학을 믿는 그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

missionaries to the farthest frontiers of all the known world. In one generation he made Buddhism the dominant religion of one half the world. It soon became established in Tibet, Kashmir, Ceylon, Burma, Java, Siam, Korea, China, and Japan. And generally speaking, it was a religion vastly superior to those which it supplanted or upstepped.

94:9.2 (1037.5) The spread of Buddhism from its homeland in India to all of Asia is one of the thrilling stories of the spiritual devotion and missionary persistence of sincere religionists. The teachers of Gautama's gospel not only braved the perils of the overland caravan routes but faced the dangers of the China Seas as they pursued their mission over the Asiatic continent, bringing to all peoples the message of their faith. But this Buddhism was no longer the simple doctrine of Gautama; it was the miraculized gospel which made him a god. And the farther Buddhism spread from its highland home in India, the more unlike the teachings of Gautama it became, and the more like the religions it supplanted, it grew to be.

94:9.3 (1038.1) Buddhism, later on, was much affected by Taoism in China, Shinto in Japan, and Christianity in Tibet. After a thousand years, in India Buddhism simply withered and expired. It became Brahmanized and later abjectly surrendered to Islam, while throughout much of the rest of the Orient it degenerated into a ritual which Gautama Siddhartha would never have recognized.

94:9.4 (1038.2) In the south the fundamentalist stereotype of the teachings of Siddhartha persisted in Ceylon, Burma, and the Indo-China peninsula. This is the Hinayana division of Buddhism which clings to the early or asocial doctrine.

94:9.5 (1038.3) But even before the collapse in India, the Chinese and north Indian groups of Gautama's followers had begun the development of the Mahayana teaching of the “Great Road” to salvation in contrast with the purists of the south who held to the Hinayana, or “Lesser Road.” And these Mahayanists cast loose from the social limitations inherent in the Buddhist doctrine, and ever since has this northern division of Buddhism continued to evolve in China and Japan.

94:9.6 (1038.4) Buddhism is a living, growing religion today because it succeeds in conserving many of the highest moral values of its adherents. It promotes calmness and self-control, augments serenity and happiness, and does much to prevent sorrow and mourning. Those who believe this philosophy live better lives than many who do not.

제 10 장. 티베트에서의 종교

10. RELIGION IN TIBET

티베트에서는 멜기세덱의 가르침들이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도교와 그리스도교와 합쳐진 가장 이상한 형태가 발견될 수 있다. 불교 선교사들이 티베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유럽의 북부에 있는 부족들 사이에서 발견하였던 것과 매우 흡사한 원시적인 야만적 상태에 부딪히게 되었다.

순진한 이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옛 마술과 부적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현재 티베트에서 행해지는 제례들 중에서 종교적인 예식을 조사해 보면, 방울, 영창, 향, 행렬, 목주, 형상, 장식품, 그림, 성수, 화려한 의복, 정교한 성가대를 포함하고 있는 정교하게 예식을 실천하는, 머리를 깎은 사제들로 구성된 과도하게 발달된 성직자 단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엄격한 독단론들을 갖고 있으며 신조들과 신비로운 예식들 그리고 특별한 금식 행위들을 정형화시켰다. 그들의 계급 조직은 승려, 여자 승려, 주지, 달라이 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천사들과 성인(聖人)들 그리고 성모와 하느님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며 연옥(煉獄)을 믿는다. 그들의 사원은 규모가 크고 장대한 경배실을 두고 있다. 그들은 신성한 종교예식을 끝없이 계속 반복하고, 그러한 예식들이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도가 어떤 바퀴에 고정되어서, 그것이 돌아갈 때 탄원하였던 것이 응답된다고 믿는다. 현대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그들처럼 그토록 많은 종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예식들을 흡수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러한 누적된 경배예식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방해가 되고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티베트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 복음의 단순한 가르침 : 하느님의 아들관계, 사람들의 형제신분,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서 계속 상승하는 시민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을 제외한 세계의 뛰어난 모든 종교들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

제 11 장. 불교도의 철학

불교는 그리스도 후 첫 번째 1,000년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황색 인종의 종교적 관습에 잘 조화되었다. 조상 숭배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들에게 기도해 왔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할 수 있다. 불교는 집대성-해체활동의 도교(道敎)로부터 잔존한 예배 실천 관행과 곧 혼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종합적인 종교는 경배를 드리는 신전(神殿)과 일정한 종교적 예식과 함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예배종파로 곧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타마의 추종자들이 예배종파의 전통들과 가르침들을 왜곡시켜서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기 전까지는, 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 삶에 대한 이 신화는 그것이 수많은 기적이 동반되었던 것처럼 미

94:10.1 (1038.5) In Tibet may be found the strangest association of the Melchizedek teachings combined with Buddhism, Hinduism, Taoism, and Christianity. When the Buddhist missionaries entered Tibet, they encountered a state of primitive savagery very similar to that which the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found among the northern tribes of Europe.

94:10.2 (1038.6) These simple-minded Tibetans would not wholly give up their ancient magic and charms. Examination of the religious ceremonials of present-day Tibetan rituals reveals an overgrown brotherhood of priests with shaven heads who practice an elaborate ritual embracing bells, chants, incense, processions, rosaries, images, charms, pictures, holy water, gorgeous vestments, and elaborate choirs. They have rigid dogmas and crystallized creeds, mystic rites and special fasts. Their hierarchy embraces monks, nuns, abbots, and the Grand Lama. They pray to angels, saints, a Holy Mother, and the gods. They practice confessions and believe in purgatory. Their monasteries are extensive and their cathedrals magnificent. They keep up an endless repetition of sacred rituals and believe that such ceremonials bestow salvation. Prayers are fastened to a wheel, and with its turning they believe the petitions become efficacious. Among no other people of modern times can be found the observance of so much from so many religions; and it is inevitable that such a cumulative liturgy would become inordinately cumbersome and intolerably burdensome.

94:10.3 (1038.7) The Tibetans have something of all the leading world religions except the simple teachings of the Jesusonian gospel: sonship with God, brotherhood with man, and ever-ascending citizenship in the eternal universe.

11. BUDDHIST PHILOSOPHY

94:11.1 (1038.8) Buddhism entered China in the first millennium after Christ, and it fitted well into the religious customs of the yellow race. In ancestor worship they had long prayed to the dead; now they could also pray for them. Buddhism soon amalgamated with the lingering ritualistic practices of disintegrating Taoism. This new synthetic religion with its temples of worship and definite religious ceremonial soon became the generally accepted cult of the peoples of China, Korea, and Japan.

94:11.2 (1039.1) While in some respects it is unfortunate that Buddhism was not carried to the world until after Gautama's followers had so perverted the traditions and teachings of the cult as to make of him a divine being, nonetheless this myth of his human life, embellished as it was with

화되면서, 불교의 복부 복음 곧 마하야나 복음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그의 후대 추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영이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정기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부처 형상과 사원, 예배의식, 그리고 거짓된 “살아있는 부처”의 막연한 영속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도인의 개혁종교는 자기가 그토록 맹렬하게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용맹스럽게 비난하였던 바로 그러한 예식적인 실천 관행과 의례적 주문에 그 스스로가 속박되었음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었다.

불교 철학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진보는 모든 진리의 상대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었다. 이러한 가정(假定) 체제를 통하여 불교도들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경전들 안에 있는 다른 견해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것과 다른 많은 것들 사이의 차이들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나약한 마음들에게는 작은 진리가, 위대한 마음들에게는 큰 진리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또한 이 철학은 부처의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 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내적 신성(神性)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내주하는 조절자들에 대한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유관시아의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싯다르타의 기원적 복음에 있어서 커다란 한계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이해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 실체로부터 자아(自我)를 고립시키는 기법에 의해 필사자 본성의 모든 한계들로부터 인간 자아의 완벽한 해방을 시도한 것이었다. 진정한 조화우주적 자아-실현은, 공간에 의해 속박을 받고 시간에 의해 제한되는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유한한 조화우주와 조화우주 실체와의 정체화구현에서 이룩된다.

그러나 불교의 예식들과 외면적인 계율들이 불교가 전파되어 지나가는 지역들의 그것들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사교 및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타락이 모두 발생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자의 진리를 확인하려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절대자의 고귀한 개념의 진화는 생각의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성(理性)의 복잡한 길들로 성취되었다. 무한성에 대한 이 교리의 향상은 히브리 신학에서의 하느님 개념의 진화처럼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불교도들의 마음들이 우주들의 시원(始原)적 근원을 상상하는 그들의 방법에 도달하고 거기에 머물며, 그것을 통과하는 어떤 폭넓은

a multitude of miracles, proved very appealing to the auditors of the northern or Mahayana gospel of Buddhism.

94:11.3 (1039.2) Some of his later followers taught that Sakyamuni Buddha's spirit returned periodically to earth as a living Buddha, thus opening the way for an indefinite perpetuation of Buddha images, temples, rituals, and impostor "living Buddhas." Thus did the religion of the great Indian protestant eventually find itself shackled with those very ceremonial practices and ritualistic incantations against which he had so fearlessly fought, and which he had so valiantly denounced.

94:11.4 (1039.3) The great advance made in Buddhist philosophy consisted in its comprehension of the relativity of all truth. Through the mechanism of this hypothesis Buddhists have been able to reconcile and correlate the divergencies within their own religious scriptur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own and many others. It was taught that the small truth was for little minds, the large truth for great minds.

94:11.5 (1039.4) This philosophy also held that the Buddha (divine) nature resided in all men; that man, through his own endeavors, could attain to the realization of this inner divinity. And this teaching is one of the clearest presentations of the truth of the indwelling Adjusters ever to be made by a Urantian religion.

94:11.6 (1039.5) But a great limitation in the original gospel of Siddhartha, as it was interpreted by his followers, was that it attempted the complete liberation of the human self from all the limitations of the mortal nature by the technique of isolating the self from objective reality. True cosmic self-realization results from identification with cosmic reality and with the finite cosmos of energy, mind, and spirit, bounded by space and conditioned by time.

94:11.7 (1039.6) But though the ceremonies and outward observances of Buddhism became grossly contaminated with those of the lands to which it traveled, this degeneration was not altogether the case in the philosophical life of the great thinkers who, from time to time, embraced this system of thought and belief. Through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many of the best minds of Asia have concentrated upon the problem of ascertaining absolute truth and the truth of the Absolute.

94:11.8 (1039.7) The evolution of a high concept of the Absolute was achieved through many channels of thought and by devious paths of reasoning. The upward ascent of this doctrine of infinity was not so clearly defined as was the evolution of the God concept in Hebrew theology. Nevertheless, there were certain broad levels which the minds of the Buddhists reached, tarried upon, and passed

차원들이 있었다.:

1. 고타마 전설. 개념의 밑바닥에는, 인도의 왕자이며 예언자인 싯다르타의 가르침과 삶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 전설은 불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지는 동안 신화적인 것으로 변해갔으며, 결국에는 고타마를 깨우친 자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부가적인 속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2. 다수(多數)의 부처들. 고타마가 인도 사람들에게 왔었다면 그보다 먼 과거와 그보다 먼 미래에 인류의 종족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에게서 축복을 받아야만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라고 추리되었다. 이것이, 여러 명의 부처들, 무제한적이고 무수히 많은 부처들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생겨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누구든지 그러한 존재—부처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3. 절대자 부처. 부처의 숫자가 무한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시대의 마음들에게는 이러한 거대한 개념을 다시 통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모든 부처들은 보다 높은 어떤 본질, 무한하고 분별불가적인 실존의 어떤 영원한 자, 모든 실체의 어떤 절대적인 근원의 현시활동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불교의 신(神) 개념은 가장 높은 형태를 취하면서 고타마 싯다르타의 인간 개인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속박되어 있던 사람모습의-신(神) 사상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영원자 부처에 대한 이 최종적 개념은 절대자, 때로는,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로 훌륭하게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절대자 신(神)에 대한 이 관념이 아시아 민족들의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적은 없었지만, 이 지역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을 통합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의 우주관을 조화롭게 하였다. 절대자 부처에 대한 개념은 때로는 반(半)-개인적이고, 때로는 온통 미(未)개인적, 어떤 경우에는 무한한 창조적 기세이기도 하다. 그러한 개념들은, 철학에 도움이 되지만, 종교적인 발전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모습의-신(神)으로서의 야훼조차도, 무한히 멀리 있는 불교 또는 브라만교의 절대자보다 더욱 위대한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때로는 절대자가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영원한 생존과 신성한 은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살렘의 단순한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는 굶주린 대중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through on their way to the envisioning of the Primal Source of universes:

94:11.9 (1039.8) 1. *The Gautama legend.* At the base of the concept was the historic fact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Siddhartha, the prophet prince of India. This legend grew in myth as it traveled through the centuries and across the broad lands of Asia until it surpassed the status of the idea of Gautama as the enlightened one and began to take on additional attributes.

94:11.10 (1040.1) 2. *The many Buddhas.* It was reasoned that, if Gautama had come to the peoples of India, then, in the remote past and in the remote future, the races of mankind must have been, and undoubtedly would be, blessed with other teachers of truth. This gave rise to the teaching that there were many Buddhas, an unlimited and infinite number, even that anyone could aspire to become one — to attain the divinity of a Buddha.

94:11.11 (1040.2) 3. *The Absolute Buddha.* By the time the number of Buddhas was approaching infinity, it became necessary for the minds of those days to reunify this unwieldy concept. Accordingly it began to be taught that all Buddhas were but the manifestation of some higher essence, some Eternal One of infinite and unqualified existence, some Absolute Source of all reality. From here on, the Deity concept of Buddhism, in its highest form, becomes divorced from the human person of Gautama Siddhartha and casts off from the anthropomorphic limitations which have held it in leash. This final conception of the Buddha Eternal can well be identified as the Absolute, sometimes even as the infinite I AM.

94:11.12 (1040.3) While this idea of Absolute Deity never found great popular favor with the peoples of Asia, it did enable the intellectuals of these lands to unify their philosophy and to harmonize their cosmology. The concept of the Buddha Absolute is at times quasi-personal, at times wholly impersonal — even an infinite creative force. Such concepts, though helpful to philosophy, are not vital to religious development. Even an anthropomorphic Yahweh is of greater religious value than an infinitely remote Absolute of Buddhism or Brahmanism.

94:11.13 (1040.4) At times the Absolute was even thought of as contained within the infinite I AM. But these speculations were chill comfort to the hungry multitudes who craved to hear words of promise, to hear the simple gospel of Salem, that faith in God would assure divine favor and eternal survival.

제 12 장. 불교의 하느님 개념

12. THE GOD CONCEPT OF BUDDHISM

불교의 우주관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2중인데: 인도와 중국의 많은 미신들에 의해 오염된 것 그리고 고타마를, 처음에는 깨우친 자로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부처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많은 인간 철학을 흡수함으로써 수난을 당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인간적인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고타마의 가르침들은 지나간 2,500년 동안 계속 진화해 왔다. 깨우친 불교도에게 있어서 부처에 대한 개념이 더 이상 고타마의 인간 개인성이 아닌 것은, 깨우친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개념이 호렙 산의 정령(精靈)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용어의 부족은, 옛날 명칭들에 대한 정서적인 보존과 함께, 흔히 종교 개념에서의 진화에 대한 참된 의의(意義)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도록 이끈다.

절대자와 대조되는 하느님 개념이 불교 안에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근원은 소승(小乘)불교와 대승(大乘)불교의 추종자들이 나뉘던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느님과 절대자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이 마침내 성숙된 것은 불교의 후자 분파이다. 하느님 개념은 세기가 지나가면서 한 걸음씩 진화되어 일본에서 료닌과 호넨 쇼닌 그리고 신란의 가르침으로, 마침내는 그 개념이 아미타 부처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음을 체험한 혼은 실존의 궁극인 열반(涅槃)에 들어가기 전에 파라다이스에 머무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서방의 파라다이스의 하느님인, 아미타의 신성한 자비와 사랑하는 보살핌에 대한 신앙으로써 새로운 구원이 달성된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철학에서, 아미타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유한 필사자 이해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실체를 굳게 붙잡고 있다; 그들의 종교 속에서는, 온통 자비로운 아미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과 순수한 심정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파라다이스의 숭고한 행복 달성에서 실패하는 고통을 주지 않을 그러한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

불교의 위대한 강점은 그 신봉자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유란시아인 신앙으로 특징지어진 것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신 교파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 종교 집단의 하나가 되어 왔다; 그것은 고타마 추종자들의 고대(古代) 선교 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리고는 다른 민족들에게 선생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어떤 근원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근원으로부터 진리를 수용하려는 이러한 기꺼운 마음은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의 전반기 동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정말로 칭찬받을만한 경향이다.

불교 자체는 20세기 부흥기를 지나가고 있다.

94:12.1 (1040.5) The great weakness in the cosmology of Buddhism was twofold: its contamination with many of the superstitions of India and China and its sublimation of Gautama, first as the enlightened one, and then as the Eternal Buddha. Just as Christianity has suffered from the absorption of much erroneous human philosophy, so does Buddhism bear its human birthmark. But the teachings of Gautama have continued to evolve during the past two and one-half millenniums. The concept of Buddha, to an enlightened Buddhist, is no more the human personality of Gautama than the concept of Jehovah is identical with the spirit demon of Horeb to an enlightened Christian. Paucity of terminology, together with the sentimental retention of olden nomenclature, is often provocative of the failure to understand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evolution of religious concepts.

94:12.2 (1040.6) Gradually the concept of God, as contrasted with the Absolute, began to appear in Buddhism. Its sources are back in the early days of this differentiation of the followers of the Lesser Road and the Greater Road. It was among the latter division of Buddhism that the dual conception of God and the Absolute finally matured. Step by step, century by century, the God concept has evolved until, with the teachings of Ryonin, Honen Shonin, and Shinran in Japan, this concept finally came to fruit in the belief in Amida Buddha.

94:12.3 (1041.1) Among these believers it is taught that the soul, upon experiencing death, may elect to enjoy a sojourn in Paradise prior to entering Nirvana, the ultimate of existence. It is proclaimed that this new salvation is attained by faith in the divine mercies and loving care of Amida, God of the Paradise in the west. In their philosophy, the Amidists hold to an Infinite Reality which is beyond all finite mortal comprehension; in their religion, they cling to faith in the all-merciful Amida, who so loves the world that he will not suffer one mortal who calls on his name in true faith and with a pure heart to fail in the attainment of the supernal happiness of Paradise.

94:12.4 (1041.2) The great strength of Buddhism is that its adherents are free to choose truth from all religions; such freedom of choice has seldom characterized a Urantian faith. In this respect the Shin sect of Japa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ogressive religious groups in the world; it has revived the ancient missionary spirit of Gautama's followers and has begun to send teachers to other peoples. This willingness to appropriate truth from any and all sources is indeed a commendable tendency to appear among religious believer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94:12.5 (1041.3) Buddhism itself is undergoing a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측면은 크게 증진되어 왔다. 배우고자하는 열망은 형제신분을 이루는 승려 사제들의 가슴속에 다시 불을 붙여 왔으며, 이 신앙 전반에 이루어진 교육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진화에 새로운 진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록이 쓰인 당시에, 아시아의 대부분은 불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과거의 암흑기 기간 동안 그토록 영웅적으로 잘 견디어 온 이 고귀한 신앙이, 인도의 위대한 선생의 제자들이 한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그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확대된 조화우주적 실체의 진리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오래 된 이 신앙이,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으려고 애써온 하느님과 절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상쾌한 자극에 다시 한 번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온 유란시아가, 진화적 기원을 가진 여러 종교와의 접촉으로 19세기 동안 쌓여진 신조와 독단론에 방해받지 않은 메시지, 미가엘의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힌두교에게, 아니 신앙을 가진 모든 민중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 예수의 복음의 영적 실체가 제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twentieth-century renaissance. Through contact with Christianity the social aspects of Buddhism have been greatly enhanced. The desire to learn has been rekindled in the hearts of the monk priests of the brotherhood, and the spread of education throughout this faith will be certainly provocative of new advances in religious evolution.

94:12.6 (1041.4) At the time of this writing, much of Asia rests its hope in Buddhism. Will this noble faith, that has so valiantly carried on through the dark ages of the past, once again receive the truth of expanded cosmic realities even as the disciples of the great teacher in India once listened to his proclamation of new truth? Will this ancient faith respond once more to the invigorating stimulus of the presentation of new concepts of God and the Absolute for which it has so long searched?

94:12.7 (1041.5) All Urantia is waiting for the proclamation of the ennobling message of Michael, unencumbered by the accumulated doctrines and dogmas of nineteen centuries of contact with the religions of evolutionary origin. The hour is striking for presenting to Buddhism, to Christianity, to Hinduism, even to the peoples of all faiths, not the gospel about Jesus, but the living, spiritual reality of the gospel of Jesus.

94:12.8 (1041.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5 편 레반트에서의 멜기세덱의 가르침

⇨ 094

유랜시아 책

09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5 편 레반트에서의 멜기세덱의 가르침
섹션

소개

- 제 1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살렘 종교
제 2 장. 초기의 이집트 종교
제 3 장. 도덕 개념의 진화
제 4 장. 아메니뮴의 가르침
제 5 장. 비범한 사람 이크나톤
제 6 장. 이란에서의 살렘 교리
제 7 장. 아라비아에서의 살렘 가르침

소개

동부 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일어났듯이, 레반트 지역은 서방 세계의 신앙 본산지였다. 살렘 선교사들이 남서부 아시아의 전역으로 퍼져나가,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이란 그리고 아라비아를 지나가면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복음인 기쁜 소식들을 그 모든 곳에 선포하였다. 이 지역들 중에서 일부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한 결실이 맺혀졌으며; 다른 어떤 지역들에서는 때에 따라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실패가 지혜의 부족에서 기인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제 1 장.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살렘 종교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은 셋-사람들의 가르침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으며 주로 두 집단의 침입자들의 원시적인 신앙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서부 사막지대로부터 스며들어온 베도윈 셈족들과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말을 타는 야만인들이었다.

PAPER 95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LEVA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Religion in Mesopotamia
2. Early Egyptian Religion
3. Evolution of Moral Concepts
4. The Teachings of Amenemope
5. The Remarkable Ikhnaton
6. The Salem Doctrines in Iran
7. The Salem Teachings in Arabia

INTRODUCTION

95:0.1 (1042.1) AS INDIA gave rise to many of the religions and philosophies of eastern Asia, so the Levant was the homeland of the faiths of the Occidental world. The Salem missionaries spread out all over southwestern Asia, through Palestine, Mesopotamia, Egypt, Iran, and Arabia, everywher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Machiventa Melchizedek. In some of these lands their teachings bore fruit; in others they met with varying success. Sometimes their failures were due to lack of wisdom, sometimes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1. THE SALEM RELIGION IN MESOPOTAMIA

95:1.1 (1042.2) By 2000 B.C. the religions of Mesopotamia had just about lost the teachings of the Sethites and were large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imitive beliefs of two groups of invaders, the Bedouin Semites who had filtered in from the western desert and the barbarian horsemen who had come down from the north.

그러나 일주일 중에서 일곱 번째 날을 숭배하는 초기 아담-사람 민족들의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직, 멜기세덱 시대 동안, 일곱 번째 날이 가장 불운한 날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금기에 의해 지배되었다; 불길한 일곱 번째 날에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또는 불을 피우는 일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일곱 번째 날인 샤바툼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관례로부터 그들이 발견한 메소포타미아의 금기를 대부분을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왔다.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을 많이 세련되게 하고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족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영구적인 인식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은 150년 이상 동안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다양한 신(神)들을 믿는 옛 신앙들에게 점차적으로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하느님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는데, 한 때는 주요 신(神)들을 일곱 개로 줄이기도 하였으며: 그것들은 벨, 샤마쉬, 나부, 아누, 에아, 마르둑, 그리고 썬 등이었다. 새로운 가르침이 최고점에 달하였을 때, 그들은 이들 하느님 중에서 셋을 다른 것들보다 최극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삼신(三神) 즉: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벨과 에아 그리고 아누였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삼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겨났는데, 모두가 안드-사람들과 수메르인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회상한 것이었고 그리고 세 개의 동심원으로 된 멜기세덱의 휘장을 믿는 살렘 사람들의 믿음에 기초를 두었다.

하느님들의 어머니이며 성적(性的)인 풍요로움의 영(靈)인 이쉬타르에 대한 인기(人氣)를 살렘 선생들이 충분히 극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여신에 대한 경배를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이웃들은 성교(性交) 경배의 변장된 형태들을 완벽하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여자들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낯선 사람들의 품에 안기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보편적인 실천 관행이 되었다; 이것은 이쉬타르가 요구하는 헌신으로 여겨졌고, 풍요로움이 주로 이러한 성적인 희생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멜기세덱 가르침의 초기 진보는, 키시에 있는 학교의 영도자였던 나보닷이 성전에서 유행하는 매춘 실천 관행들에 대해 합의된 공격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갱신을 이룩하려는 살렘 선교사들의 노력은 실패하였으며, 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적 가르침과 철학적 가르침들은 이러한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살렘 복음의 이러한 실패 뒤에 이쉬타르 예배 종파가 즉시로 엄청나게 확장되었는데, 그 숭배예식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쉬토렛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북부의 부족들에게는

95:1.2 (1042.3) But the custom of the early Adamite peoples in honoring the seventh day of the week never completely disappeared in Mesopotamia. Only, during the Melchizedek era, the seventh day was regarded as the worst of bad luck. It was taboo-ridden; it was unlawful to go on a journey, cook food, or make a fire on the evil seventh day. The Jews carried back to Palestine many of the Mesopotamian taboos which they had found resting on the Babylonian observance of the seventh day, the Shabattum.

95:1.3 (1042.4) Although the Salem teachers did much to refine and uplift the religions of Mesopotamia, they did not succeed in bringing the various peoples to the permanent recognition of one God. Such teaching gained the ascendancy for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years and then gradually gave way to the older belief in a multiplicity of deities.

95:1.4 (1042.5) The Salem teachers greatly reduced the number of the gods of Mesopotamia, at one time bringing the chief deities down to seven: Bel, Shamash, Nabu, Anu, Ea, Marduk, and Sin. At the height of the new teaching they exalted three of these gods to supremacy over all others, the Babylonian triad: Bel, Ea, and Anu, the gods of earth, sea, and sky. Still other triads grew up in different localities, all reminiscent of the trinity teachings of the Andites and the Sumerians and based on the belief of the Salemites in Melchizedek's insignia of the three circles.

95:1.5 (1042.6) Never did the Salem teachers fully overcome the popularity of Ishtar, the mother of gods and the spirit of sex fertility. They did much to refine the worship of this goddess, but the Babylonians and their neighbors had never completely outgrown their disguised forms of sex worship. It had become a universal practice throughout Mesopotamia for all women to submit, at least once in early life, to the embrace of strangers; this was thought to be a devotion required by Ishtar, and it was believed that fertility was largely dependent on this sex sacrifice.

95:1.6 (1043.1) The early progress of the Melchizedek teaching was highly gratifying until Nabodad, the leader of the school at Kish, decided to make a concerted attack upon the prevalent practices of temple harlotry. But the Salem missionaries failed in their effort to bring about this social reform, and in the wreck of this failure all their more important spiritual and philosophic teachings went down in defeat.

95:1.7 (1043.2) This defeat of the Salem gospel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great increase in the cult of Ishtar, a ritual which had already invaded Palestine as Ashtoreth, Egypt as Isis, Greece as

아스타르테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사제들이 다시 한 번 점성술로 기울어진 것은 이쉬타르에 대한 경배가 이렇게 회복된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의 마지막 대 부흥을 체험하였고, 점치는 일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사제 계급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멜기세덱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느님,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조물주이신 분을 가르치라고, 오로지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은혜의 복음만을 전파하도록 경고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속도가 느린 진화를 갑작스러운 혁명으로 대체시키려는 실수를 종종 범하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은 그 민족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였다;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였고, 그들의 고귀한 동기들은 실패로 빠져들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우주 아버지의 실체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관례를 개선하는, 겉보기에 가치 있는 동기에 얽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한 사명은 옆길로 빠지고 실질적으로 좌절과 망각으로 거의 사라졌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키쉬에 있는 살렘 본부는 사라지게 되었고,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전파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살렘 학교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계속 잔존하였다. 여기저기로 흩어진 적은 무리들이 유일하신 창조자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고수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구약 성서의 시편들 대부분을 바위 위에 새긴 사람은 바로 자기들의 가르침이 거부된 뒤에 활동하던 살렘 선교사들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히브리 사제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것들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찬미의 시(詩)들을 수집하면서 그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바빌로니아에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시편들은 벨-마르둑의 신전에는 새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초기 살렘 선교사들의 후손들의 작품이었고, 바빌로니아 사제들이 수집한 마술적인 것들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인 것이었다. 읊기는 키쉬에 있는 살렘 학교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가르쳐진 가르침이 매우 잘 반영된 작품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문화 대부분은 아메니토포와 이크나톤의 활동을 통하여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히브리 문학과 경배 예식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초기의 안드-사람 메소포타미아인 들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유프라테스 계곡을 점령한 후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가르침을 두드러지게 보존하였다.

Aphrodite, and the northern tribes as Astarte. And it was in connection with this revival of the worship of Ishtar that the Babylonian priests turned anew to stargazing; astrology experienced its last great Mesopotamian revival, fortunetelling became the vogue, and for centuries the priesthood increasingly deteriorated.

95:1.8 (1043.3) Melchizedek had warned his followers to teach about the one God, the Father and Maker of all, and to preach only the gospel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alone. But it has often been the error of the teachers of new truth to attempt too much, to attempt to supplant slow evolution by sudden revolution.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in Mesopotamia raised a moral standard too high for the people; they attempted too much, and their noble cause went down in defeat. They had been commissioned to preach a definite gospel, to proclaim the truth of the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y became entangled in the apparently worthy cause of reforming the mores, and thus was their great mission sidetracked and virtually lost in frustration and oblivion.

95:1.9 (1043.4) In one generation the Salem headquarters at Kish came to an end, and the propaganda of the belief in one God virtually ceased throughout Mesopotamia. But remnants of the Salem schools persisted. Small bands scattered here and there continued their belief in the one Creator and fought against the idolatry and immorality of the Mesopotamian priests.

95:1.10 (1043.5) It was the Salem missionaries of the period following the rejection of their teaching who wrote many of the Old Testament Psalms, inscribing them on stone, where later-day Hebrew priests found them during the captivity and subsequently incorporated them among the collection of hymns ascribed to Jewish authorship. These beautiful psalms from Babylon were not written in the temples of Bel-Marduk; they were the work of the descendants of the earlier Salem missionaries, and they are a striking contrast to the magical conglomerations of the Babylonian priests. The Book of Job is a fairly good reflection of the teachings of the Salem school at Kish and throughout Mesopotamia.

95:1.11 (1043.6) Much of the Mesopotamian religious culture found its way into Hebrew literature and liturgy by way of Egypt through the work of Amenemope and Ikhnoton. The Egyptians remarkably preserved the teachings of social obligation derived from the earlier Andite Mesopotamians and so largely lost by the later Babylonians who occupied the Euphrates valley.

제 2 장. 초기의 이집트 종교

2. EARLY EGYPTIAN RELIGION

기원적인 멜기세덱 가르침들은 이집트에서

95:2.1 (1043.7) The original Melchizedek teachings

실제적으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것들은 나중에 그곳으로부터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나일 계곡의 진화 종교는 낯사람과 아담-사람 그리고 후대에는 유프라테스 계곡의 안드-사람 민족의 우월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주기적으로 증강되었다. 때로는 수메르인들이 이집트의 시민 행정-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시기에 세계의 가장 많은 종족들이 인도에서 섞인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유라시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종교 철학 유형들이 거의 완벽하게 혼합되는 형태가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나일 계곡으로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유대인들은 세상 창조에 대한 그들의 관념 대부분을 바빌로니아로부터 받아들인 반면, 신성한 섭리의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유래하였다.

이집트로 하여금 살렘 가르침에 대하여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호의를 보이게 한 것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보다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이었다. 이집트의 각 부족 영도자들은, 권좌를 차지하는 투쟁을 벌인 후에는, 자기 부족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하느님들의 기원적인 신(神)이며 창조자라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왕좌를 영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초(超)하느님에 대한 관념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우주적 창조자 신(神)에 대한 후대의 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유일신(唯一神) 관념은 이집트에서 여러 세기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토대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다신론(多神論)의 진화하는 개념을 제대로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하느님들을 경배해 왔으며; 더욱 특별한 것은, 여러 개로 분리된 부족들 각각이 하나의 특별한 집단적 하느님을 섬겼는데, 하나는 황소를 경배하고 다른 하나는 사자를, 세 번째는 숫양을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하여 다른 것을 섬겼다. 훨씬 전에는 그들도 아메리카 원주민과 매우 흡사한, 토tem을 섬기는 부족들이었다.

때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놓인 시신이 탄산소다 성분을 함유한 모래의 작용에 의해 보호—썩지 않게 보존됨—되는 반면, 벽돌로 지은 무덤 속에 장사된 것은 부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그것들을 실험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체를 향료로 처리하는 실천 관행을 낳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보존함으로써 그를 미래의 삶으로 용이하게 옮겨가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 몸체가 부패한 후 먼 훗날에도 그 개별존재가 적절하게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시체 옆에 매장용 조각품을 두었고 관(棺) 위에도 비슷한 모습을 새겨 두었다. 이러한 매장용 조각품을 만드는 일이 이집트의 예술을 매우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이 그 시신을 지켜주고 그 결과로 사후(死後)의 생존을 쾌적하게 해준다는 신앙을 여러 세기 동안 간직하였다. 신비적인 실천 관행들의 후대 진화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really took their deepest root in Egypt, from where they subsequently spread to Europe. The evolutionary religion of the Nile valley was periodically augmented by the arrival of superior strains of Nodite, Adamite, and later Andite peoples of the Euphrates valley. From time to time, many of the Egyptian civil administrators were Sumerians. As India in these days harbored the highest mixture of the world races, so Egypt fostered the most thoroughly blended type of religious philosophy to be found on Urantia, and from the Nile valley it spread to many parts of the world. The Jews received much of their idea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from the Babylonians, but they derived the concept of divine Providence from the Egyptians.

95:2.2 (1044.1) It was political and moral, rather than philosophic or religious, tendencies that rendered Egypt more favorable to the Salem teaching than Mesopotamia. Each tribal leader in Egypt, after fighting his way to the throne, sought to perpetuate his dynasty by proclaiming his tribal god the original deity and creator of all other gods. In this way the Egyptians gradually got used to the idea of a supergod, a steppingstone to the later doctrine of a universal creator Deity. The idea of monotheism wavered back and forth in Egypt for many centuries, the belief in one God always gaining ground but never quite dominating the evolving concepts of polytheism.

95:2.3 (1044.2) For ages the Egyptian peoples had been given to the worship of nature gods; more particularly did each of the two-score separate tribes have a special group god, one worshipping the bull, another the lion, a third the ram, and so on. Still earlier they had been totem tribes, very much like the Amerinds.

95:2.4 (1044.3) In time the Egyptians observed that dead bodies placed in brickless graves were preserved — embalmed — by the action of the soda-impregnated sand, while those buried in brick vaults decayed. These observations led to those experiments which resulted in the later practice of embalming the dead. The Egyptians believed that preservation of the body facilitated one's passage through the future life. That the individual might properly be identified in the distant future after the decay of the body, they placed a burial statue in the tomb along with the corpse, carving a likeness on the coffin. The making of these burial statues led to great improvement in Egyptian art.

95:2.5 (1044.4) For centuries the Egyptians placed their faith in tombs as the safeguard of the body and of consequent pleasurable survival after death. The later evolution of magical practices,

때까지 삶에 부담이 되는 것이었던 반면에, 무덤을 믿는 종교로부터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출하는 것이 되었다. 사제들은 “지하의 세계에서 사람의 심장이 빼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마법의 문장을 관(棺)에 새기고자 하였다. 현재 이러한 마법적 문장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사자(死者)의 책으로 보존되어 수집되었다. 그러나 나일 계곡에서는 일찍부터 마술적인 종교 예식이 양심과 성격의 영역 속에 상당히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의식이 그 당시의 종교 의식에 의해서 달성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교한 무덤보다는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

이 시대의 미신적 관습들은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침을 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념은 이집트에서 기원이 되었고 그곳으로부터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전파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호루스와 셋의 전투에서 젊은 하느님이 자기 눈을 잃어버렸지만, 셋이 정복당한 후에, 이 눈이 현명한 하느님인 토스에 의해 회복되었는데, 그가 상처에 침을 뱉음으로써 그것을 치료하였다는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가치 있는 죽음에서 혼이 살아난 것을 나타낸다고 오랫동안 믿었다; 그들은 생존된 다른 사람들이 태양 속으로 흡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태양 숭배가 조상 경배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하였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경사진 출입 통로가 똑바로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혼이 무덤에서 깨어났을 때 고정된 별의 별자리, 정지되어 있는 왕의 거처라고 생각되는 확정된 별자리로 똑바로 갈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태양의 비스듬한 광선이 구름 속에서 틈새를 통하여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것이 그 왕과 다른 의로운 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천상(天上)의 계단이 내려오는 징조라고 믿었다. “폐피 왕이 그것을 밟고 자기 어머니에게 올라가기 위해 그의 발밑에 층계를 이루도록 광채를 내려뜨렸다.”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보다 훨씬 높은 종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체현에서 벗어나게 된 혼이 만약에 마술적인 처방으로 알맞게 무장된다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피할 수 있고 오시리스의 재판실로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만약에 “살인, 약탈, 거짓말, 간음, 도둑질, 이기심”의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천국 세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에 이 혼을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는 것이 판명되면, 그 혼은 지옥으로, 삼키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미래의 삶에 대한 비교적 진보된 개념이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 속에 살았던 삶의 죄에 대하여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신학으로 전래되었다. 심판이라

while burdensome to lif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most effectually delivered them from the religion of the tombs. The priests would inscribe the coffins with charm texts which were believed to be protection against a “man’s having his heart taken away from him in the nether world.” Presently a diverse assortment of these magical texts was collected and preserved as The Book of the Dead. But in the Nile valley magical ritual early became involved with the realms of conscience and character to a degree not often attained by the rituals of those days. And subsequently these ethical and moral ideals, rather than elaborate tombs, were depended upon for salvation.

95:2.6 (1044.5) The superstitions of these times are well illustrated by the general belief in the efficacy of spittle as a healing agent, an idea which had its origin in Egypt and spread therefrom to Arabia and Mesopotamia. In the legendary battle of Horus with Set the young god lost his eye, but after Set was vanquished, this eye was restored by the wise god Thoth, who spat upon the wound and healed it.

95:2.7 (1044.6) The Egyptians long believed that the stars twinkling in the night sky represented the survival of the souls of the worthy dead; other survivors they thought were absorbed into the sun. During a certain period, solar veneration became a species of ancestor worship. The sloping entrance passage of the great pyramid pointed directly toward the Pole Star so that the soul of the king, when emerging from the tomb, could go straight to the stationary and established constellations of the fixed stars, the supposed abode of the kings.

95:2.8 (1045.1) When the oblique rays of the sun were observed penetrating earthward through an aperture in the clouds, it was believed that they betokened the letting down of a celestial stairway whereon the king and other righteous souls might ascend. “King Pepi has put down his radiance as a stairway under his feet whereon to ascend to his mother.”

95:2.9 (1045.2) When Melchizedek appeared in the flesh, the Egyptians had a religion far above that of the surrounding peoples. They believed that a disembodied soul, if properly armed with magic formulas, could evade the intervening evil spirits and make its way to the judgment hall of Osiris, where, if innocent of “murder, robbery, falsehood, adultery, theft, and selfishness,” it would be admitted to the realms of bliss. If this soul were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it would be consigned to hell, to the Devouress. And this was, relatively, an advanced concept of a future life in comparison with the beliefs of many surrounding peoples.

95:2.10 (1045.3) The concept of judgment in the hereafter for the sins of one’s life in the flesh on earth was carried over into Hebrew theology from

는 말은 히브리 시편 문서 전체에서 꼭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별한 그 성시(聖詩)는 이집트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었다.

제 3 장. 도덕 개념의 진화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주로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고 히브리인들과 그리스인들을 통하여 그 후의 문명들에게 많이 전수되기는 하였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나일 계곡에서 하나의 순수한 진화적 발전으로 발생되었다. 안드-사람으로부터 기원된 많은 진리와 문화가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의 증여 전에 다른 모든 주변 지역에 있었던 비슷한 자연적 기법에 의해 나타났던 것보다 더욱 도덕적인 문화가 순전한 인간적 발전으로 이집트에서 진화되었다.

도덕적 진화는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높은 도덕 개념들이 사람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사람은 신성한 영이 그의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영적 가치들을 진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적 삶으로부터 조화우주 통찰력이 유래할 수도 있다. 양심과 성격에 있어서의 그러한 자연적인 진화들은, 고대에 두 번째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후대에는 살렘에 있는 멜기세덱 본부로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주기적으로 도래함으로써 증강되기도 하였다.

살렘의 복음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수천 년 전에, 그곳에서는 도덕적인 영도자들이 공의(公義)와 공정성 그리고 탐욕 회피 등을 가르쳤다. 히브리 경전이 쓰이기 3,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의 금언은 이러하였다: “그 표준이 정의롭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출세한다.” 그들은 친절함과 온화함 그리고 사려 깊은 분별력을 가르쳤다. 이 신(新)시대에 위대했던 선생들 중 한 사람의 메시지는: “정의를 행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이집트인들의 3화음은 진리-정의-공정성이었다. 유란시아의 순전히 인간적인 모든 종교들 중에서 나일 계곡의 이러한 한 때의 인본주의의 사회적 이상과 도덕적 위엄을 능가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진화하는 윤리적 관념과 도덕적 이상의 토양 속에서, 살렘 종교의 생존하는 교리들이 번성하였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은, “평화로운 자가 생명을, 죄 있는 자가 죽음을 받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을 일을 행한 자는 평화로우며; 미움받는 일을 행한 자는 죄가 있는 것이다.” 나일 계곡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여러 세기동안에 옳고 그른 후대의 개념들—선과 악—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 솟아나는 윤리와 사회적 표준에 따라서 살아갔었다.

이집트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반면에 그렇게 영적이지는 못하였다. 6,000년 동안 오직 네 사람

Egypt. The word judgment appears only once in the entire Book of Hebrew Psalms, and that particular psalm was written by an Egyptian.

3. EVOLUTION OF MORAL CONCEPTS

95:3.1 (1045.4) Although the culture and religion of Egypt were chiefly derived from Andite Mesopotamia and largely transmitted to subsequent civilizations through the Hebrews and Greeks, much, very much, of the social and ethical idealism of the Egyptians arose in the valley of the Nile as a purely evolutionary development. Notwithstanding the importation of much truth and culture of Andite origin, there evolved in Egypt more of moral culture as a purely human development than appeared by similar natural techniques in any other circumscribed area prior to the bestowal of Michael.

95:3.2 (1045.5) Moral evolution is not wholly dependent on revelation. High moral concepts can be derived from man's own experience. Man can even evolve spiritual values and derive cosmic insight from his personal experiential living because a divine spirit indwells him. Such natural evolutions of conscience and character were also augmented by the periodic arrival of teachers of truth, in ancient times from the second Eden, later on from Melchizedek's headquarters at Salem.

95:3.3 (1045.6) Thousands of years before the Salem gospel penetrated to Egypt, its moral leaders taught justice, fairness, and the avoidance of avarice. Three thousand years before the Hebrew scriptures were written, the motto of the Egyptians was: “Established is the man whose standard is righteousness; who walks according to its way.” They taught gentleness, moderation, and discretion. The message of one of the great teachers of this epoch was: “Do right and deal justly with all.” The Egyptian triad of this age was Truth-Justice-Righteousness. Of all the purely human religions of Urantia none ever surpassed the social ideals and the moral grandeur of this onetime humanism of the Nile valley.

95:3.4 (1045.7) In the soil of these evolving ethical ideas and moral ideals the surviving doctrines of the Salem religion flourished. The concepts of good and evil found ready response in the hearts of a people who believed that “Life is given to the peaceful and death to the guilty.” “The peaceful is he who does what is loved; the guilty is he who does what is hated.” For centuries the inhabitants of the Nile valley had lived by these emerging ethical and social standards before they ever entertained the later concepts of right and wrong — good and bad.

95:3.5 (1046.1) Egypt was intellectual and moral but not overly spiritual. In six thousand years only four

의 선지자들이 이집트인들 속에서 출현하였을 뿐이다. 그들은 아메니몹을 한 동안 따랐고; 오크반은 죽었으며; 이크나톤은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짧은 세대 동안 가슴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였고;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살렘의 가르침 대신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후대에는 요셉이 이집트 전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종교적인 상황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살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주민들의 수정된 도덕적 표준들과 합쳐져 진화된 매우 높은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나일 계곡의 이 초기 선생들은 양심이 하느님의 명령, 신(神)으로부터의 소리라고 선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제 4 장. 아메니몹의 가르침

때가 이르자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부터는 아메니몹이라고 불리는 한 선생이 출현하였다. 이 선각자(先覺者)는 양심을 강화시켜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고의 지점으로 끌어 올렸으며, 죄에 대해 징계할 것을 가르쳤고, 태양 신(神)에게 요청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였다.

아메니몹은 부유함과 행운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개념은 나중에 나타난 히브리 철학을 속속들이 물들였다. 고귀한 이 선생은 하느님을-의식함이 모든 행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요소라는 것; 모든 순간마다 하느님에 대한 책임, 그 현존의 실현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믿었다. 이 현자의 가르침은 그 후에 히브리어로 번역되었고 구약이 기록을 위하여 축소되기 훨씬 전에 그 민족의 성스러운 책이 되었었다. 이 착한 사람의 주요 설교는 정부가 맡긴 직책에서 정직하고 성실할 것을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고, 먼 옛날의 이러한 고귀한 정서는 모든 현대 정치가에게도 명예가 될 것이다.

나일의 이 현자는 “부(富)는 자기 스스로 날개를 달고, 그리고 날아가 버린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라고 가르쳤다. 그의 위대한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언어”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향해 돌아서라고 훈계하였다. 실제로 그는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결과는 하느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그의 가르침들은 구약성경 잠언서의 철학을 결정지었다.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그것들은 그 후의 모든 헬라의 종교 철학을 물들였다.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인 필로는 지혜서의 사본을 하나 갖고 있었다.

아메니몹은 진화적인 윤리들과 계시적인 도덕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기가 기록한 문서들을 통하여 히브리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

great prophets arose among the Egyptians. Amenemope they followed for a season; Okhban they murdered; Ikhnaton they accepted but halfheartedly for one short generation; Moses they rejected. Again was it political rather than religious circumstances that made it easy for Abraham and, later on, for Joseph to exert great influence throughout Egypt in behalf of the Salem teachings of one God. But when the Salem missionaries first entered Egypt, they encountered this highly ethical culture of evolution blended with the modified moral standards of Mesopotamian immigrants. These early Nile valley teachers were the first to proclaim conscience as the mandate of God, the voice of Deity.

4. THE TEACHINGS OF AMENEMOPE

95:4.1 (1046.2) In due time there grew up in Egypt a teacher called by many the “son of man” and by others Amenemope. This seer exalted conscience to its highest pinnacle of arbitrament between right and wrong, taught punishment for sin, and proclaimed salvation through calling upon the solar deity.

95:4.2 (1046.3) Amenemope taught that riches and fortune were the gift of God, and this concept thoroughly colored the later appearing Hebrew philosophy. This noble teacher believed that God-consciousness was the determining factor in all conduct; that every moment should be lived in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and responsibility to, God. The teachings of this sage were subsequently translated into Hebrew and became the sacred book of that people long before the Old Testament was reduced to writing. The chief preachment of this good man had to do with instructing his son in uprightness and honesty in governmental positions of trust, and these noble sentiments of long ago would do honor to any modern statesman.

95:4.3 (1046.4) This wise man of the Nile taught that “riches take themselves wings and fly away” — that all things earthly are evanescent. His great prayer was to be “saved from fear.” He exhorted all to turn away from “the words of men” to “the acts of God.” In substance he taught: Man proposes but God disposes. His teachings, translated into Hebrew, determined the philosophy of the Old Testament Book of Proverbs. Translated into Greek, they gave color to all subsequent Hellenic religious philosophy. The later Alexandrian philosopher, Philo, possessed a copy of the Book of Wisdom.

95:4.4 (1046.5) Amenemope functioned to conserve the ethics of evolution and the morals of revelation and in his writings passed them on both to the

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었다. 그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교적 선생들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서방 문명—그 중 서방의 종교적 신념의 정점으로 진화시킨 히브리인들, 유럽의 가장 위대한 정상에 이르는 순전히 철학적인 사상으로 발전시킨 그리스인들—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중대한 교리들이 되는 후대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히브리 잠언서 중에서, 15장과 17장과 20장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아메니뎀의 지혜서에서 거의 말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히브리 시편 책의 첫 번째 시는 아메니뎀이 쓴 것이며 이크나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제 5 장. 비범한 사람 이크나톤

아메니뎀의 가르침들은 이집트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 위치를 서서히 잃고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인이면서 살렘 사람이었던 한 의사의 영향력을 통하여, 왕족 가문의 여인이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지지하였다.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이집트의 파라오, 이크나톤에게 한분 하느님에 대한 이들 교리들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였다.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사라진 이후로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이크나톤만큼 살렘의 계시된 종교에 대한 개념을 그토록 놀랄 정도로 분명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어떤 면에서, 젊은 이 이집트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적 쇠퇴가 증대되던 시기 동안에, 그는 이집트에서 엘 엘리온,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존속시켰으며, 그리하여 그 다음의 미래에 미가엘이 증여되는 종교적 배경에 지극히 중대한 유일신 개념의 철학적 방향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 그곳에서 이크나톤의 영적인 후계자들 중의 일부가 그를 만나고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신성한 임무의 어떤 위상들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는 히브리 인종 세계와 이집트의 왕족 가문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 만약에 이크나톤이 모세의 융통성과 능력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인 천재성과 놀라운 종교적 지도력을 현시하였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이집트는 그 시대에 유일신 개념을 갖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가 그의 필사자 삶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이집트에서 사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왕도 이 비범한 이크나톤처럼 국가 전체를 다신교로부터 유일신교로 옮겨가는 일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

Hebrews and to the Greeks. He was not the greatest of the religious teachers of this age, but he was the most influential in that he colored the subsequent thought of two vital links in the growth of Occidental civilization — the Hebrews, among whom evolved the acme of Occidental religious faith, and the Greeks, who developed pure philosophic thought to its greatest European heights.

95:4.5 (1046.6) In the Book of Hebrew Proverbs, chapters fifteen, seventeen, twenty, and chapter twenty-two, verse seventeen, to chapter twenty-four, verse twenty-two, are taken almost verbatim from Amenemope's Book of Wisdom. The first psalm of the Hebrew Book of Psalms was written by Amenemope and is the heart of the teachings of Ikhnaton.

5. THE REMARKABLE IKHNATON

95:5.1 (1047.1) The teachings of Amenemope were slowly losing their hold on the Egyptian mind when, through the influence of an Egyptian Salemite physician, a woman of the royal family espoused the Melchizedek teachings. This woman prevailed upon her son, Ikhnaton, Pharaoh of Egypt, to accept these doctrines of One God.

95:5.2 (1047.2) Since the disappearance of Melchizedek in the flesh, no human being up to that time had possessed such an amazingly clear concept of the revealed religion of Salem as Ikhnaton. In some respects this young Egyptian king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persons in human history. During this time of increasing spiritual depression in Mesopotamia, he kept alive the doctrine of El Elyon, the One God, in Egypt, thus maintaining the philosophic monotheistic channel which was vital to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then future bestowal of Michael. And it was in recognition of this exploit, among other reasons, that the child Jesus was taken to Egypt, where some of the spiritual successors of Ikhnaton saw him and to some extent understood certain phases of his divine mission to Urantia.

95:5.3 (1047.3) Moses, the greatest character between Melchizedek and Jesus, was the joint gift to the world of the Hebrew race and the Egyptian royal family; and had Ikhnaton possessed the versatility and ability of Moses, had he manifested a political genius to match his surprising religious leadership, then would Egypt have become the great monotheistic nation of that age; and if this had happened, it is barely possible that Jesus might have lived the greater portion of his mortal life in Egypt.

95:5.4 (1047.4) Never in all history did any king so methodically proceed to swing a whole nation from polytheism to monotheism as did this

하였다. 이 젊은 왕은 가장 놀랄만한 결단력에 의해 과거를 청산하였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떠났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고 전체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예술과 문학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설립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민족의 물질적인 안정성과 번영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역경과 고난이 이집트인들에게 몰아닥쳤을 때 그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항하여 불리한 반응을 나타냈다.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통찰력과 비범하게 일사불란함을 소유하였던 이 사람이 만일 모세의 정치적인 총명성을 가졌더라면, 그는 서방 세계에서 그의 진리 계시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생 동안에 사제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개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종파들을 비밀리에 유지시켰고 그 젊은 왕이 세력을 잃자마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의 통치 기간에 유일신교를 세움에 있어서 이집트가 그 후에 겪었던 모든 분쟁 요소들을 재빨리 결합시켰다.

매우 현명하게도, 이크나톤은 태양-하느님을 가장하여 유일신교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하느님들을 흡수하여 태양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우주 아버지께 대한 숭배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이 결정은 살렘 사람 의사의 조언에 기인된 것이었다. 이크나톤은 신(神)의 아버지신분과 어머니 관계에 관하여 그 당시에 실존하던 아톤 신앙의 일반화된 교리들을 채택하였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긴밀한 신앙적 관계를 실현하는 하나의 종교를 창출하였다.

이크나톤은 외부적으로는 태양-하느님인 아톤을 경배하는 동시에, 자기 연관-동료들로 하여금 위장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느님, 아톤의 창조자와 만유의 최극하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할 만큼 매우 현명하였다. 선생이면서 왕이었던 이 젊은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한분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주해서를 썼고, 그 책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며, 힘을 다시 잡은 사제들이 그것을 철저히 없애버렸다. 또한 이크나톤은 137편의 찬송 시를 썼으며, 그 중에 12개는 현재 구약 성서의 시편에 보존되어 있고 히브리인 저자의 공적으로 되어 있다.

이크나톤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대하여 주는 최극의 말은 “정의”였으며, 그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개념을 민족뿐만 아니라 국제적 윤리까지 포용하도록 신속하게 확대시켰다. 이 세대는 놀라운 정도로 개인적인 경건성을 보여주었으며, 지능이 있는 더욱 많은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참된 열망이 특성을 이루었다. 그 시대에는 율법적인 면에서 볼 때 사회적인 지위나 부유함이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혜택도 전혀 주지 못하였다. 이집트의 가정생활은 도덕적인 문화를 많이 보존하고 증강시켰으며 후대에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들의 뛰어난 가정생활에 감화를 주었다.

extraordinary Ikhnaton. With the most amazing determination this young ruler broke with the past, changed his name, abandoned his capital, built an entirely new city, and created a new art and literature for a whole people. But he went too fast; he built too much, more than could stand when he had gone. Again, he failed to provide for the material stability and prosperity of his people, all of which reacted unfavorably against his religious teachings when the subsequent floods of adversity and oppression swept over the Egyptians.

95:5.5 (1047.5) Had this man of amazingly clear vision and extraordinary singleness of purpose had the political sagacity of Moses, he would have changed the whol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religion and the revelation of truth in the Occidental world. During his lifetime he was able to curb the activities of the priests, whom he generally discredited, but they maintained their cults in secret and sprang into action as soon as the young king passed from power; and they were not slow to connect all of Egypt's subsequent troubles with the establishment of monotheism during his reign.

95:5.6 (1047.6) Very wisely Ikhnaton sought to establish monotheism under the guise of the sun-god. This decision to approach the worship of the Universal Father by absorbing all gods into the worship of the sun was due to the counsel of the Salemite physician. Ikhnaton took the generalized doctrines of the then existent Aton faith regarding the fatherhood and motherhood of Deity and created a religion which recognized an intimate worshipful relation between man and God.

95:5.7 (1048.1) Ikhnaton was wise enough to maintain the outward worship of Aton, the sun-god, while he led his associates in the disguised worship of the One God, creator of Aton and supreme Father of all. This young teacher-king was a prolific writer, being author of the exposition entitled “The One God,” a book of thirty-one chapters, which the priests, when returned to power, utterly destroyed. Ikhnaton also wrote one hundred and thirty-seven hymns, twelve of which are now preserved in the Old Testament Book of Psalms, credited to Hebrew authorship.

95:5.8 (1048.2) The supreme word of Ikhnaton's religion in daily life was “righteousness,” and he rapidly expanded the concept of right doing to embrace international as well as national ethics. This was a generation of amazing personal piety and was characterized by a genuine aspiration among the more intelligent men and women to find God and to know him. In those days social position or wealth gave no Egyptian any advantage in the eyes of the law. The family life of Egypt did much to preserve and augment moral culture and was the inspiration of the later superb family life of the Jews in Palestine.

이크나톤이 제시한 복음의 치명적인 취약성은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 아톤이 이집트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들 그리고 이집트의 땅 외에도 모든 이방 나라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며, 그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심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제공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신(神)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고상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민족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종교에 있어서 그러한 범-국제적인 정서는 전쟁터에서 이집트 군인들의 사기를 증강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반면에 그것들은 사제들이 젊은 왕과 그의 새로운 종교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하였다. 그는 후대의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神)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의 목적을 만족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유일신의 이상이 이크나톤의 죽음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많은 집단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크나톤의 사위는 사제들을 따라서 옛날 하느님들의 경배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 이름을 투탄카멘이라고 바꿨다. 수도(首都)는 다시 테베로 되돌아갔고, 사제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집트 전체의 7분의 1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계층의 사제들 중 하나가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유일신 개념의 물결을 충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하느님들을 합병시키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들의 계통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이크나톤은 하늘들의 불타는 원반을 창조자 하느님과 연결시켰으며, 이러한 관념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는데, 심지어 젊은 개혁자가 죽은 후 한참 지난 후에는 사제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다. 유일신교의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동일한 신성한 아버지, 이크나톤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들려고 그토록 열광적으로 전파하였던 유일하신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도 계속 존속하였다.

이크나톤의 교리의 취약점은, 오직 교육을 받은 이집트인들만이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된 종교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반 대중들은 실제로 그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과 악의 하느님인 셋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는 이시스와 그녀의 동행자 오시리스에 대한 옛날의 경배로 사제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불멸한다는 가르침은 이집트인들에게 너무 진보적인 것이었다. 오직 왕들과 부자들만이 부활을 보장받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그들의 시신을 그토록 신중하게 약품으로 처리하고 무덤

95:5.9 (1048.3) The fatal weakness of Ikhnaton's gospel was its greatest truth, the teaching that Aton was not only the creator of Egypt but also of the “whole world, man and beasts, and all the foreign lands, even Syria and Kush, besides this land of Egypt. He sets all in their place and provides all with their needs.” These concepts of Deity were high and exalted, but they were not nationalistic. Such sentiments of internationality in religion failed to augment the morale of the Egyptian army on the battlefield, while they provided effective weapons for the priests to use against the young king and his new religion. He had a Deity concept far above that of the later Hebrews, but it was too advanced to serve the purposes of a nation builder.

95:5.10 (1048.4) Though the monotheistic ideal suffered with the passing of Ikhnaton, the idea of one God persisted in the minds of many groups. The son-in-law of Ikhnaton went along with the priests, back to the worship of the old gods, changing his name to Tutankhamen. The capital returned to Thebes, and the priests waxed fat upon the land, eventually gaining possession of one seventh of all Egypt; and presently one of this same order of priests made bold to seize the crown.

95:5.11 (1048.5) But the priests could not fully overcome the monotheistic wave. Increasingly they were compelled to combine and hyphenate their gods; more and more the family of gods contracted. Ikhnaton had associated the flaming disc of the heavens with the creator God, and this idea continued to flame up in the hearts of men, even of the priests, long after the young reformer had passed on. Never did the concept of monotheism die out of the hearts of men in Egypt and in the world. It persisted even to the arrival of the Creator Son of that same divine Father, the one God whom Ikhnaton had so zealously proclaimed for the worship of all Egypt.

95:5.12 (1048.6) The weakness of Ikhnaton's doctrine lay in the fact that he proposed such an advanced religion that only the educated Egyptians could fully comprehend his teachings. The rank and file of the agricultural laborers never really grasped his gospel and were, therefore, ready to return with the priests to the old-time worship of Isis and her consort Osiris, who was supposed to have been miraculously resurrected from a cruel death at the hands of Set, the god of darkness and evil.

95:5.13 (1049.1) The teaching of immortality for all men was too advanced for the Egyptians. Only kings and the rich were promised a resurrection; therefore did they so carefully embalm and preserve their bodies in tombs against the day of

속에 보존하였다. 그러나 이크나톤이 가르쳤던 일반적인 구원과 부활이 결국에는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후대의 이집트인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생존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집트의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유일하신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노력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의 작품의 반향이 팔레스타인과 그리스 양쪽에서 존속되었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나일의 진화적인 문화와 유프라테스의 계시 종교가 혼합된 것을 나중에 서방의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이집트가 하였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나일 계곡에서 도덕적 발전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이 위대한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인들의 민족적인 삶이 시작될 무렵에 급속도로 소멸되었으며, 그 후에 그들이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이 베도윈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며 이크나톤의 교리들 대부분을 자기들의 인종적 종교 속에 영속시켰다.

judgment. But the democracy of salvation and resurrection as taught by Ikhnaton eventually prevailed, even to the extent that the Egyptians later believed in the survival of dumb animals.

95:5.14 (1049.2) Although the effort of this Egyptian ruler to impose the worship of one God upon his people appeared to fail,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 repercussions of his work persisted for centuries both in Palestine and Greece, and that Egypt thus became the agent for transmitting the combined evolutionary culture of the Nile and the revelatory religion of the Euphrates to all of the subsequent peoples of the Occident.

95:5.15 (1049.3) The glory of this great era of moral development and spiritual growth in the Nile valley was rapidly passing at about the time the national life of the Hebrews was beginning, and consequent upon their sojourn in Egypt these Bedouins carried away much of these teachings and perpetuated many of Ikhnaton's doctrines in their racial religion.

제 6 장. 이란에서의 살렘 교리

일부분의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팔레스타인 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거대한 이란 평원으로 들어갔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렘 선생들은 이란에서 일을 진행시켰고, 국가 전체가 멜기세덱 종교로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통치자들이 바뀌게 되어 갑자기 격심한 박해를 일으켰고 그것이 살렘 예배종파의 유일신교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종결시켰다.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교리가 페르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 도덕적 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위대한 시대에 조로아스터가 나타나 타다 남은 살렘 복음의 불씨로부터 기운을 소생시켰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이 사람은 박력 있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였는데,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 맨 처음 순례여행에서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 반란에 관한 전승들—다른 여러 가지 전승들과 함께—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종교적인 본성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따라서 우르에 있을 때 꿈의 결과로, 그는 북부 지역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의 종교를 개편하는 일을 착수하는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다. 그는 공의(公義)의 하느님에 대한 히브리 관념,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이미 흡수한 상태에 있었다. 최극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으며, 다른 모든 하느님들을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마귀들의 계급으로 몰아넣어, 마귀들로 격하시켰다. 그는 우르에 남아 있던 일곱 주(主)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으며, 따라서 그는 일곱 명의 최극 하느님들의 은하계를 만들면서 아후라-마즈다를 그 꼭대기에 두었다. 그는 이러한 하위의 하느님들을 정의의 법, 선한 생각, 고귀한 정부, 신성한 개인성, 건강 그리고 불

6. THE SALEM DOCTRINES IN IRAN

95:6.1 (1049.4) From Palestine some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passed on through Mesopotamia and to the great Iranian plateau. For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the Salem teachers made headway in Iran, and the whole nation was swinging to the Melchizedek religion when a change of rulers precipitated a bitter persecution which practically ended the monotheistic teachings of the Salem cult. The doctrine of the Abrahamic covenant was virtually extinct in Persia when, in that great century of moral renaissance, the sixth before Christ, Zoroaster appeared to revive the smouldering embers of the Salem gospel.

95:6.2 (1049.5) This founder of a new religion was a virile and adventurous youth, who, on his first pilgrimage to Ur in Mesopotamia, had learned of the traditions of the Caligastia and the Lucifer rebellion — along with many other traditions — all of which had made a strong appeal to his religious nature. Accordingly, as the result of a dream while in Ur, he settled upon a program of returning to his northern home to undertake the remodeling of the religion of his people. He had imbibed the Hebraic idea of a God of justice, the Mosaic concept of divinity. The idea of a supreme God was clear in his mind, and he set down all other gods as devils, consigned them to the ranks of the demons of which he had heard in Mesopotamia. He had learned of the stor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 the tradition lingered in Ur, and, accordingly, he created a galaxy of seven supreme gods with Ahura-Mazda at its head. These subordinate gods he associated with the idealization of Right Law,

멸성에 대한 이상(理想)과 연관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는 기도와 경배 예식이 아니라 일종의 행동—활동—이었다. 그 종교의 하느님은 최극 지혜의 존재였고 문명의 후원자였으며; 그것은 악(惡)과 게으름 그리고 퇴보와 과감하게 싸우는 투쟁적인 종교 철학이었다.

조로아스터는 불을 경배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불꽃을 우주적이고 최극의 통치성을 갖는 순수하고 현명한 영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자 하였다. (후대의 그의 추종자들이 상징적인 불을 존경하고 경배하였던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마침내, 이란인 영주의 개종이 있고 나서부터, 새로운 이 종교는 무력에 의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조로아스터는 자신이 “빛의 주님의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위하여 싸우다가 용맹스럽게 죽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일곱 주(主) 영들에 관한 달라마시아와 에텐의 가르침들을 영속으로 간직하였던 유란시아의 유일한 교리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개념이 진화하는데 실패하였지만 한편, 칠중 하느님에게는 특정한 길에서 접근하였다. 근원적인 조로아스터교는 순수한 이원론이 아니었다; 비록 초기의 가르침이 악(惡)을 선(善)의 어떤 시간 조화-협동으로 묘사하기는 하였지만, 악은 분명하게 선의 궁극적 실체 안에 영원으로-가라앉아있는 것이었다. 후대에 와서야 비로소, 선과 악이 동등한 조건 위에서 다투는 것이라는 믿음이 신임을 얻게 되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대의 전승들 그리고 히브리 경전에 기록된 마귀들에 대한 교리는,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에 관한 잔존한 전승들 위에 기초를 둔 반면, 대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치를 받는 동안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유래되었다.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인들처럼 “심판의 날”을 가르쳤지만, 그는 이 사건을 세상의 끝과 연결하였다.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뒤이은 종교조차도 그것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란의 사제들이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을 폐지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미트라에 대한 옛날의 경배 체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트라 숭배는 레반트 지역과 지중해 지역 전체에 퍼졌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동시대에 존재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은 세 개의 위대한 종교들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마호멧교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의 고양된 가르침들과 고상한 성시(聖詩)들은, 조로아스터가 결코 지지를 얻으려고 수그린 적도 없었던 케변에 대한 믿음의 향연과 결부되어,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지닌 파시교도에 의해 그의 복음이 현대에 와서 왜곡된,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대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전 6세기경에 출현하여 영속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길

Good Thought, Noble Government, Holy Character, Health, and Immortality.

95:6.3 (1049.6) And this new religion was one of action — work — not prayers and rituals. Its God was a being of supreme wisdom and the patron of civilization; it was a militant religious philosophy which dared to battle with evil, inaction, and backwardness.

95:6.4 (1049.7) Zoroaster did not teach the worship of fire but sought to utilize the flame as a symbol of the pure and wise Spirit of universal and supreme dominance. (All too true, his later followers did both reverence and worship this symbolic fire.) Finally, upon the conversion of an Iranian prince, this new religion was spread by the sword. And Zoroaster heroically died in battle for that which he believed was the “truth of the Lord of light.”

95:6.5 (1050.1) Zoroastrianism is the only Urantian creed that perpetuates the Dalamatian and Edenic teachings about the Seven Master Spirits. While failing to evolve the Trinity concept, it did in a certain way approach that of God the Sevenfold. Original Zoroastrianism was not a pure dualism; though the early teachings did picture evil as a time co-ordinate of goodness, it was definitely eternity-submerged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good. Only in later times did the belief gain credence that good and evil contended on equal terms.

95:6.6 (1050.2) The Jewish traditions of heaven and hell and the doctrine of devils as recorded in the Hebrew scriptures, while founded on the lingering traditions of Lucifer and Caligastia, were principally derived from the Zoroastrians during the times when the Jews were under the political and cultural dominance of the Persians. Zoroaster, like the Egyptians, taught the “day of judgment,” but he connected this event with the end of the world.

95:6.7 (1050.3) Even the religion which succeeded Zoroastrianism in Persia was markedly influenced by it. When the Iranian priests sought to overthrow the teachings of Zoroaster, they resurrected the ancient worship of Mithra. And Mithraism spread throughout the Levant and Mediterranean regions, being for some time a contemporary of both Judaism and Christianity. The teachings of Zoroaster thus came successively to impress three great religions: Judaism and Christianity and, through them, Mohammedanism.

95:6.8 (1050.4) But it is a far cry from the exalted teachings and noble psalms of Zoroaster to the modern perversions of his gospel by the Parsees with their great fear of the dead, coupled with the entertainment of beliefs in sophistries which Zoroaster never stooped to countenance.

95:6.9 (1050.5) This great man was one of that unique group that sprang up in the sixth century before

을 자신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살렘의 빛이 너무나 희미하게 타고 있을 때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꺼지는 일을 막아주었던 독특한 집단들 중의 하나였다.

제 7 장. 아라비아에서의 살렘 가르침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비교적 최근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립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도 살렘 선교사들은 지나친-조직에 대한 마키벤타의 지시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부의 강제적인 집행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라는 그의 훈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방해는 받은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로마에서도, 바로 그 살렘에 그토록 가까이 위치한 이 사막에서보다 더 완벽하게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실패하지는 않았다. 동방과 서방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다수가 각각 불교도와 그리스도 교인이 된 오랜 후에도, 아라비아 사막은 마치 수천 년 전의 상태가 계속되는 듯하였다. 각 부족들은 옛날의 주물을 경배하였고, 수많은 각 가정들은 그들 자신의 가신(家神)들을 섬기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이쉬타르, 히브리의 야훼, 이란의 아후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한 개념이 다른 것들을 충분히 대치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라비아 전역의 여기저기에서 가정들과 씨족들이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어렴풋한 관념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한 무리들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조로아스터에 관한 전승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 공동체의 복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중심지들이 있었지만, 사막 지역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에서 선교사들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타협적이고 혁신적인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엄격하고 완고한 집단이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을 더욱 진지하게 수행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자비로웠고, 그들 스스로가 궁리해낸 부차적인 사회적 요구조건에 덜 가혹했다면, 그랬다면 아라비아도 그들 중의 하나인, 많은 땅들이 목수의 아들의 쉬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위대한 레반트인의 유일신교가 아라비아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 지대는 하나의 신앙을 산출해 낼 수 있었으며, 사회적인 요구 조건이 적었지만, 그래도 역시 유일신적이었다.

그 사막 지대의 원시적이고도 조직되지 않은 신앙들에 관한 부족적, 인종적, 또는 국가적인 특성이 꼭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아라비아 부족들이 메카에 있는 어떤 사원의 검은 돌 주물에게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독특하고도 일반적인 존경이었다. 그 통속적인 접촉과 존경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슬람 중

Christ to keep the light of Salem from being fully and finally extinguished as it so dimly burned to show man in his darkened world the path of light leading to everlasting life.

7. THE SALEM TEACHINGS IN ARABIA

95:7.1 (1050.6) The Melchizedek teachings of the one God became established in the Arabian desert at a comparatively recent date. As in Greece, so in Arabia the Salem missionaries failed because of their misunderstanding of Machiventa's instructions regarding overorganization. But they were not thus hindered by their interpretation of his admonition against all efforts to extend the gospel through military force or civil compulsion.

95:7.2 (1050.7) Not even in China or Rome did the Melchizedek teachings fail more completely than in this desert region so very near Salem itself. Long after the majority of the peoples of the Orient and Occident had become respectively Buddhist and Christian, the desert of Arabia continued as it had for thousands of years. Each tribe worshiped its olden fetish, and many individual families had their own household gods. Long the struggle continued between Babylonian Ishtar, Hebrew Yahweh, Iranian Ahura, and Christian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Never was one concept able fully to displace the others.

95:7.3 (1051.1) Here and there throughout Arabia were families and clans that held on to the hazy idea of the one God. Such groups treasured the traditions of Melchizedek, Abraham, Moses, and Zoroaster. There were numerous centers that might have responded to the Jesusonian gospel, but the Christian missionaries of the desert lands were an austere and unyielding group in contrast with the compromisers and innovators who functioned as missionaries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Had the followers of Jesus taken more seriously his injunct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had they been more gracious in that preaching, less stringent in collateral social requirements of their own devising, then many lands would gladly have received the simple gospel of the carpenter's son, Arabia among them.

95:7.4 (1051.2) Despite the fact that the great Levantine monotheisms failed to take root in Arabia, this desert land was capable of producing a faith which, though less demanding in its social requirements, was nonetheless monotheistic.

95:7.5 (1051.3) There was only one factor of a tribal, racial, or national nature about the primitive and unorganized beliefs of the desert, and that was the peculiar and general respect which almost all Arabian tribes were willing to pay to a certain black stone fetish in a certain temple at Mecca. This point of common contact and reverence

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화산의 영인 야훼는 셈족 유대인의 것이었고, 카바 바위는 그들의 사촌인 아랍 족속의 것이 되었다.

이슬람의 강점은 오직 유일한 신(神)인 알라에 대한 선명하고도 뚜렷한 관념이었고; 그것의 약점은 여자를 격하시킨 점과 함께, 그 보급을 위해 군사적인 기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고부동하게 만유의 유일하신 우주적 신(神),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보이는 존재들을 아시는 분. 자비로우시고 연민이 많으신 분”을 끊임 없이 제시해 왔다. “하느님은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그 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네 번째 존재로 계시는데,” 그 분이 “처음ियो 나중이시며, 또한 보이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숨어 계시는 분”때문이 아니겠는가?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subsequent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slamic religion. What Yahweh, the volcano spirit, was to the Jewish Semites, the Kaaba stone became to their Arabic cousins.

95:7.6 (1051.4) The strength of Islam has been its clear-cut and well-defined presentation of Allah as the one and only Deity; its weakness, the association of military force with its promulgation, together with its degradation of woman. But it has steadfastly held to its presentation of the One Universal Deity of all, “who knows the invisible and the visible. He is the merciful and the compassionate.” “Truly God is plenteous in goodness to all men.” “And when I am sick, it is he who heals me.” “For whenever as many as three speak together, God is present as a fourth,” for is he not “the first and the last, also the seen and the hidden”?

95:7.7 (1051.5)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6 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느님

⇨ 095

유랜시아 책

09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6 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느님

섹션

소개

- 제 1 장. 셈족 사이에서의 신(神) 개념들
- 제 2 장. 셈 민족
- 제 3 장. 비할 데 없는 모세
- 제 4 장. 야훼를 선포함
- 제 5 장. 모세의 가르침
- 제 6 장. 모세가 죽은 이후의 하느님 개념
- 제 7 장. 시편과 읍기

PAPER 96

YAHWEH — GOD OF THE HEBREWS

SECTIONS

Introduction

- 1. Deity Concepts among the Semites
- 2. The Semitic Peoples
- 3. The Matchless Moses
- 4. The Proclamation of Yahweh
- 5. The Teachings of Moses
- 6. The God Concept after Moses' Death
- 7. Psalms and the Book of Job

소개

신(神)을 상상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든 하느님들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하느님들을 자기 부족의 신(神) 아래에 복종시키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며 최극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느님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시킨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에 대한 자기들의 더욱 숭고한 개념 속으로 모든 하느님들을 합성하였다. 마찬가지로 힌두인들은 자신들의 잡다한 신(神)들을 리그-베다에 표현된 “신들에 대한 하나의 영성(靈性)” 속으로 합성시킨 반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벨-마르둑이라는 보다 집중된 개념으로 자기 하느님들의 수를 줄였다. 유일신 론의 이 관념들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살렘에 출현한 후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신(神)에 대한 멜기세덱의 개념은 포함시키고 복종시키고 제거하는 진화적인 철학의 개념과는 달랐으며; 오로지 창조적인 힘에 기초를 두었고, 곧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神) 개념들에 영향을 주었다.

살렘 종교는 켄-사람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나안-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전통으로 존경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멜기세덱이 육신화된 목적들 중의 하나였는데: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종교가 그렇게 조성되어 그 유일하신 하느님의 한 아들이

INTRODUCTION

96:0.1 (1052.1) IN CONCEIVING of Deity, man first includes all gods, then subordinates all foreign gods to his tribal deity, and finally excludes all but the one God of final and supreme value. The Jews synthesized all gods into their more sublime concept of the Lord God of Israel. The Hindus likewise combined their multifarious deities into the “one spirituality of the gods” portrayed in the Rig-Veda, while the Mesopotamians reduced their gods to the more centralized concept of Bel-Marduk. These ideas of monotheism matured all over the world not long after the appearance of Melchizedek at Salem in Palestine. But the Melchizedek concept of Deity was unlike that of the evolutionary philosophy of inclusion, subordination, and exclusion; it was based exclusively on *creative power* and very soon influenced the highest deity concepts of Mesopotamia, India, and Egypt.

96:0.2 (1052.2) The Salem religion was revered as a tradition by the Kenites and several other Canaanite tribes. And this was one of the purposes of Melchizedek's incarnation: That a religion of one God should be so fostered as to

이 세상에 증여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미가엘은 자신이 나타나게 될 그 사람들 중에서 우주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오실 수가 없었다.

살렘 종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켄-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신조로 지속되었고, 나중에 히브리인들에게 받아들여진 이 종교는 처음에는 이집트인의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 나중에는 바빌로니아의 신학 사상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이관인의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 종교가 사실상 아브라함과 마키벤타 멜기세덱 사이의 계약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으로는 많은 독특한 상황들로부터 자라난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전체 레반트 지역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이 밀려온 것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의 도덕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이 서방 민족들에게 전해진 것은 히브리 종교를 통해서이다.

prepare the way for the earth bestowal of a Son of that one God. Michael could hardly come to Urantia until there existed a people believing in the Universal Father among whom he could appear.

96:0.3 (1052.3) The Salem religion persisted among the Kenites in Palestine as their creed, and this religion as it was later adopted by the Hebrews was influenced, first, by Egyptian moral teachings; later, by Babylonian theologic thought; and lastly, by Iranian conceptions of good and evil. Factually the Hebrew religion is predicated upon the covenant between Abraham and Machiventa Melchizedek, evolutionally it is the outgrowth of many unique situational circumstances, but culturally it has borrowed freely from the religion, morality, and philosophy of the entire Levant. It is through the Hebrew religion that much of the morality and religious thought of Egypt, Mesopotamia, and Iran was transmitted to the Occidental peoples.

제 1 장. 셈족 사이에서의 신(神) 개념들

초기의 셈족 사람들은 모든 것들 속에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의 영들이 있었고; 자손을 낳게 하는 주인인 일년생(一年生) 영들이 있었다; 물과 공기의 영들이 있었다; 경외심과 경배를 받으려는 진실 그대로 만신(萬神)의 영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 창조자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이러한 하위의 영들 또는 자연 하느님들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파괴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히브리인들이 다신론으로부터 단일신교를 거쳐 유일신교로 발전한 것은 온전하고도 연속적인 개념적 발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神)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역행을 체험하였으며, 또한 모든 신(新)시대들마다 서로 다른 셈족 신자들 집단들 사이에서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관념들이 존재하였다. 때로는 수많은 단어들이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들에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신(神) 이름들은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인 신학의 진화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定意)될 것이다:

1. 야훼는 남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부족들의 하느님이었는데, 그들은 이 신(神) 개념을 호렙산, 시나이 화산과 연관시켰다. 야훼는 셈족 부족들과 민족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경배를 요구한 수백 수천의 자연 하느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2. 엘 엘리온. 멜기세덱이 살렘에 머문 후 여러 세기 동안 신(神)에 대한 그의 교리는 다양한 형태들로 유지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엘 엘리온, 하늘의 지고자 하느님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셈족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야훼와 엘 엘리온을 같이 경배하였다.

1. DEITY CONCEPTS AMONG THE SEMITES

96:1.1 (1052.4) The early Semites regarded everything as being indwelt by a spirit. There were spirits of the animal and vegetable worlds; annual spirits, the lord of progeny; spirits of fire, water, and air; a veritable pantheon of spirits to be feared and worshiped. And the teaching of Melchizedek regarding a Universal Creator never fully destroyed the belief in these subordinate spirits or nature gods.

96:1.2 (1052.5) The progress of the Hebrews from polytheism through henotheism to monotheism was not an unbroken and continuous conceptual development. They experienced many retrogressions in the evolution of their Deity concepts, while during any one epoch there existed varying ideas of God among different groups of Semite believers. From time to time numerous terms were applied to their concepts of God, and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these various Deity titles will be defined as they pertain to the evolution of Jewish theology:

96:1.3 (1053.1) 1. *Yahweh* was the god of the southern Palestinian tribes, who associated this concept of deity with Mount Horeb, the Sinai volcano. Yahweh was merely one of the hundreds and thousands of nature gods which held the attention and claimed the worship of the Semitic tribes and peoples.

96:1.4 (1053.2) 2. *El Elyon*. For centuries after Melchizedek's sojourn at Salem his doctrine of Deity persisted in various versions but was generally connoted by the term El Elyon, the Most High God of heaven. Many Semites, including the immediate descendants of Abraham, at various times worshiped both Yahweh and El Elyon.

3. 엘 샤다이. 엘 샤다이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느님에 대한 이 관념은 아톤에 대한 이크나톤의 교리에 의해 수정되고 엘 엘리온에 대한 개념 속에 체현되어 있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았던 아메니뎀의 지혜서의 교훈들로부터 유래된 합성물이었다. 그러나 엘 샤다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자, 그것은 사막의 야훼 신앙으로 속속들이 물들게 되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지배적인 관념들 중의 하나는 신성한 섭리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이 엘 샤다이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르침이었다.

4. 엘. 용어상의 이 혼돈과 개념상의 불투명성의 와중에서, 믿음이 깊은 많은 사람들은 신성(神性)에 대한 이들 진화하는 관념들의 모든 것을 경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복합적인 신(神)을 엘이라고 부르는 실천 관행이 자라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그 위에 다른 베도윈의 자연 하느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5. 엘로힘. 키쉬와 우르에서는 아담과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들 위에 기초를 둔 셋이면서-하나이신 하느님 개념을 가르친 수메르-갈대아 인이 오랫동안 잔존하였다. 이 교리는 이집트로 전수되었고, 이 삼위일체 개념은 그곳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엘로아라는 단수 개념으로 경배되었다. 이집트에서 철학을 하는 무리들과 히브리 혈통의 후대 알렉산드리아 선생들은 합일된 복수의 하느님들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으며, 출애굽당시에 모세의 많은 충고자들은 이 삼위일체 개념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자 엘로힘에 대한 개념은 그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기까지는 히브리 신학의 실제적인 부분이 된 적이 없었다.

6. 잡다한 이름들. 셈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神)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때때로 수많은 명칭들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들은: 하느님의 영, 주님, 주님의 천사, 전능자, 거룩하신 분, 지고자, 아도나이, 옛적으로 늘 계신 이,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 키리오스, 야, 만군의 주, 하늘의 아버지 등이었다.

여호와라는,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 체험 속에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완성된 야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최근에 채택된 용어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예수 시대 이후(以後) 1,500년경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까지, 시나이 산은 때때로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후대에도 간헐적인 화산 분출은 발생하였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뢰와 같은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는 주변 지역에 있는 베도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호렙산의 이 영은 나중에 히

96:1.5 (1053.3) 3. *El Shaddai*. It is difficult to explain what El Shaddai stood for. This idea of God was a composite derived from the teachings of Amenemope's Book of Wisdom modified by Ikhnaton's doctrine of Aton and further influenced by Melchizedek's teachings embodied in the concept of El Elyon. But as the concept of El Shaddai permeated the Hebrew mind, it became thoroughly colored with the Yahweh beliefs of the desert.

96:1.6 (1053.4) One of the dominant ideas of the religion of this era was the Egyptian concept of divine Providence, the teaching that material prosperity was a reward for serving El Shaddai.

96:1.7 (1053.5) 4. *El*. Amid all this confusion of terminology and haziness of concept, many devout believers sincerely endeavored to worship all of these evolving ideas of divinity, and there grew up the practice of referring to this composite Deity as El. And this term included still other of the Bedouin nature gods.

96:1.8 (1053.6) 5. *Elohim*. In Kish and Ur there long persisted Sumerian-Chaldean groups who taught a three-in-one God concept founded on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Adam and Melchizedek. This doctrine was carried to Egypt, where this Trinity was worshiped under the name of Elohim, or in the singular as Eloah. The philosophic circles of Egypt and later Alexandrian teachers of Hebraic extraction taught this unity of pluralistic Gods, and many of Moses' advisers at the time of the exodus believed in this Trinity. But the concept of the trinitarian Elohim never became a real part of Hebrew theology until after they had come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Babylonians.

96:1.9 (1053.7) 6. *Sundry names*. The Semites disliked to speak the name of their Deity, and they therefore resorted to numerous appellations from time to time, such as: The Spirit of God, The Lord, The Angel of the Lord, The Almighty, The Holy One, The Most High, Adonai, The Ancient of Days, The Lord God of Israel,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Kyrios, Jah, The Lord of Hosts, and The Father in Heaven.

96:1.10 (1053.8) *Jehovah* is a term which in recent times has been employed to designate the completed concept of Yahweh which finally evolved in the long Hebrew experience. But the name Jehovah did not come into use until fifteen hundred years after the times of Jesus.

96:1.11 (1054.1) Up to about 2000 B.C., Mount Sinai was intermittently active as a volcano, occasional eruptions occurring as late as the time of the sojourn of the Israelites in this region. The fire and smoke, together with the thunderous detonations associated with the eruptions of this volcanic mountain, all impressed and awed the Bedouins of the surrounding regions and caused them greatly

브리 셈족 사람들의 하느님이 되었으며, 그들은 결국에는 그가 다른 모든 하느님들보다도 최극이라고 믿게 되었다.

가나안-사람들은 오랫동안 야훼를 존경해 왔으며, 비록 켄-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렘 종교의 초(超)하느님인 엘 엘리온을 다소 믿기는 하였지만, 가나안-사람들 대부분은 옛날의 부족 신(神)들에 대한 경배에 막연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개념의 하느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민족적인 신(神)들을 기꺼이 버릴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우주적-신(神)을 받아들일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들은 계속하여 자기들의 부족 신(神)들을 경배하였는데, 야훼는 물론 시나이 산 화산의 영에 대한 베도인 목자들의 개념을 상징화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동시에, 히브리인들의 야훼도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예언자들이 시리아 왕에게: “그들의 하느님들은 언덕의 하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야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인류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보다 약한 하느님들은 하나의 최극 신(神)에게 종속된다; 위대한 주피터만이 하나의 감탄사로 존속된다. 일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위(下位) 하느님들을 영, 귀신, 숙명, 바다의 요정, 선녀, 농가의 요정, 난쟁이, 여자 요정, 흥안 등으로 유지시킨다. 히브리인들은 단일신교의 단계를 지나왔으며 야훼 이외에 다른 하느님들의 실존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방의 신(神)들이 야훼보다 낫다고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그들은 아모리족속의 하느님인 케모쉬의 실재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하느님이 야훼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야훼에 대한 관념은 필사자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모든 이론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발전을 겪어왔다. 그 발전적인 진화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다의 변형밖에 없는데, 야훼 개념이 최종적으로 우주 아버지의 관념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것은 결국 우주 절대자의 개념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신(神)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호렘 산의 부족 하느님으로부터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후대의 창조자 아버지 개념으로 바뀐 반면에, 그들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 신(神)에 대한 이러한 진화하는 개념을 항상 계속하여 야훼라고 불렀다.

to fear Yahweh. This spirit of Mount Horeb later became the god of the Hebrew Semites, and they eventually believed him to be supreme over all other gods.

96:1.12 (1054.2) The Canaanites had long revered Yahweh, and although many of the Kenites believed more or less in El Elyon, the supergod of the Salem religion, a majority of the Canaanites held loosely to the worship of the old tribal deities. They were hardly willing to abandon their national deities in favor of an international, not to say an interplanetary, God. They were not universal-deity minded, and therefore these tribes continued to worship their tribal deities, including Yahweh and the silver and golden calves which symbolized the Bedouin herders' concept of the spirit of the Sinai volcano.

96:1.13 (1054.3) The Syrians, while worshiping their gods, also believed in Yahweh of the Hebrews, for their prophets said to the Syrian king: “Their gods are gods of the hills; therefore they were stronger than we; but let us fight against them on the plain, and surely we shall be stronger than they.”

96:1.14 (1054.4) As man advances in culture, the lesser gods are subordinated to a supreme deity; the great Jove persists only as an exclamation. The monotheists keep their subordinate gods as spirits, demons, fates, Nereids, fairies, brownies, dwarfs, banshees, and the evil eye. The Hebrews passed through henotheism and long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gods other than Yahweh, but they increasingly held that these foreign deities were subordinate to Yahweh. They conceded the actuality of Chemosh, god of the Amorites, but maintained that he was subordinate to Yahweh.

96:1.15 (1054.5) The idea of Yahweh has undergone the most extensive development of all the mortal theories of God. Its progressive evolution can only be compared with the metamorphosis of the Buddha concept in Asia, which in the end led to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bsolute even as the Yahweh concept finally led to the idea of the Universal Father. But as a matter of historic fac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while the Jews thus changed their views of Deity from the tribal god of Mount Horeb to the loving and merciful Creator Father of later times, they did not change his name; they continued all the way along to call this evolving concept of Deity, Yahweh.

제 2 장. 셈 민족

동방의 셈족 사람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동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연합한 잘 조직되고 건장한 기마인들이었다. 우르 근처의 갈대아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셈족

2. THE SEMITIC PEOPLES

96:2.1 (1054.6) The Semites of the East were well-organized and well-led horsemen who invaded the eastern regions of the fertile crescent and there united with the Babylonians. The Chaldeans near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보된 사람들에 속하였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을 장악한 우월하고도 잘 조직된 혼합된 셈족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인종적으로 볼 때 셈족 사람들은 유란시아 민족들 중에서 가장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에 속하였는데,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 인종들로부터 유전 인자들을 받은 상태였다.

아라비아의 셈족 사람들은 북부의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반복하여 투쟁하며 올라갔지만, 보다 낮게 조직되고 더욱 고도로 문명화된 북부의 셈족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후에는 히타이트-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쫓겨나게 되자, 현저하게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방랑하는 이 배도원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공공 사업에 계약 노동자가 되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나일 계곡의 평범하고도 학대받는 노동자들로 매일같이 힘든 고생을 하는 노예 상태의 쓰라린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셈족 중 어떤 부족들이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린 것은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시대 직후였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전체의 인종적 조상이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던 배도원 셈족 사람들 전체의 조상도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자손들이 후대의 유대인 민족의 핵심을 이룬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스라엘 씨족으로 편입되게 된 남자들과 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집트에 머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북부 아라비아를 통과하여 여행한 그들의 셈족 연관-동료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지도 체제를 따르기로 선택한 단순한 유목민들에 불과하였다.

지도자인 엘 엘리온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과,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은혜를 받는 계약은, 얼마 안 있어서 히브리 국가를 형성하게 될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에 포로가 되었을 당시에는, 많이 잊힌 상태였다. 그러나 포로가 된 이 기간 동안에 이 아라비아 유목민들은 야훼에 대한 어렴풋한 전통적인 믿음을 자기들의 인종적인 신(神)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야훼는 100개 이상의 독립된 아라비아 부족들에 의해서 경배되었으며,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혼합된 혈통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보다 교양 있는 부류들 사이에서 유지되었던 멜기세덱의 엘 엘리온 개념의 잔재를 제외한다면, 히브리 포로 노예들인 일반 대중의 종교는 신비적이고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옛날의 야훼 예식이 변형된 것이었다.

Ur were among the most advanced of the eastern Semites. The Phoenicians were a superior and well-organized group of mixed Semites who held the western section of Palestine, along the Mediterranean coast. Racially the Semites were among the most blended of Urantia peoples, containing hereditary factors from almost all of the nine world races.

96:2.2 (1054.7) Again and again the Arabian Semites fought their way into the northern Promised Land, the land that “flowed with milk and honey,” but just as often were they ejected by the better-organized and more highly civilized northern Semites and Hittites. Later, during an unusually severe famine, these roving Bedouins entered Egypt in large numbers as contract laborers on the Egyptian public works, only to find themselves undergoing the bitter experience of enslavement at the hard daily toil of the common and downtrodden laborers of the Nile valley.

96:2.3 (1055.1) It was only after the days of Machiventa Melchizedek and Abraham that certain tribes of Semites, because of their peculiar religious beliefs, were called the children of Israel and later on Hebrews, Jews, and the “chosen people.” Abraham was not the racial father of all the Hebrews; he was not even the progenitor of all the Bedouin Semites who were held captive in Egypt. True, his offspring, coming up out of Egypt, did form the nucleus of the later Jewish people, but the vast majority of the men and women who became incorporated into the clans of Israel had never sojourned in Egypt. They were merely fellow nomads who chose to follow the leadership of Moses as the children of Abraham and their Semite associates from Egypt journeyed through northern Arabia.

96:2.4 (1055.2) The Melchizedek teaching concerning El Elyon, the Most High, and the covenant of divine favor through faith, had been largely forgotten by the time of the Egyptian enslavement of the Semite peoples who were shortly to form the Hebrew nation. But throughout this period of captivity these Arabian nomads maintained a lingering traditional belief in Yahweh as their racial deity.

96:2.5 (1055.3) Yahweh was worshiped by more than one hundred separate Arabian tribes, and except for the tinge of the El Elyon concept of Melchizedek which persisted among the more educated classes of Egypt, including the mixed Hebrew and Egyptian stocks, the religion of the rank and file of the Hebrew captive slaves was a modified version of the old Yahweh ritual of magic and sacrifice.

제 3 장. 비할 데 없는 모세

3. THE MATCHLESS MOSES

히브리 개념들과 최극 창조자에 대한 이상들의 시작은, 위대한 영도자이며 선생이며 조직가인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에서 셈족 사람들이 떠날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의 왕족 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베도원 포로들과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업무를 맡아보는 셈족 혈통의 관리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월한 인종적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본질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조상은 매우 많이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가 이러한 혼합된 유형이 아니었다면, 그의 영도자관계하에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그 베도원 셈족 사람들과 결국에는 연관하게 된 다양한 유목민들을 그로 하여금 잘 다루도록 하였던 그러한 특이한 다재다능함과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나일 왕국 문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아버지의 민족과 함께 자기 땅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다. 이 위대한 조직가가 자기 아버지 민족의 결국 이루어지는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베도원 포로들은 그 이름에 걸 맞는 종교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었고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어떤 영도자도 그보다 더 비참하고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무지한 인간 집단을 갱생하고 향상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그들의 유전적인 혈통에 있어서 발전할 잠재 가능성들을 갖고 있었으며, 해방을 위한 폭동과 파업을 일으킬 날을 위하여 유능한 조직책의 무리들을 구성하는 준비에 있어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왔던 충분한 숫자의 학식 있는 영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 우월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 태생이면서 감독자들로 일하는 직책에 고용되어 있었다; 모세가 이집트인 통치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약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인 셈족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외교적으로 흥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이집트의 왕과 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평화적으로 나일 계곡을 떠나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의 봉사의 표시로 적당량의 돈과 물질을 받게 되어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파라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집트를 배척하는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왕은 나중에 이 조약의 이행을 거절하기에 알맞은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첩자들이 베도원 노예들 속에서 불충한 행동을 발견하였다는 핑계로 그 이유를 삼았다. 그는 그들이 이집트를 배척하는 유목민들을 조직적으로 단결시키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가려는 의도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다; 자기 때를 기다리다가, 1년이 되기 전에, 강력한 리비아 무리가 남쪽으로부터 들이닥치고 그리스의 해군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동시적인 맹공에 대항하는

96:3.1 (1055.4) The beginning of the evolution of the Hebraic concepts and ideals of a Supreme Creator dates from the departure of the Semites from Egypt under that great leader, teacher, and organizer, Moses. His mother was of the royal family of Egypt; his father was a Semitic liaison officer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edouin captives. Moses thus possessed qualities derived from superior racial sources; his ancestry was so highly blended that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him in any one racial group. Had he not been of this mixed type, he would never have displayed that unusual versatility and adaptability which enabled him to manage the diversified horde which eventually became associated with those Bedouin Semites who fled from Egypt to the Arabian Desert under his leadership.

96:3.2 (1055.5) Despite the enticements of the culture of the Nile kingdom, Moses elected to cast his lot with the people of his father. At the time this great organizer was formulating his plans for the eventual freeing of his father's people, the Bedouin captives hardly had a religion worthy of the name; they were virtually without a true concept of God and without hope in the world.

96:3.3 (1055.6) No leader ever undertook to reform and uplift a more forlorn, downcast, dejected, and ignorant group of human beings. But these slaves carried latent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in their hereditary strains, and there were a sufficient number of educated leaders who had been coached by Moses in preparation for the day of revolt and the strike for liberty to constitute a corps of efficient organizers. These superior men had been employed as native overseers of their people; they had received some education because of Moses' influence with the Egyptian rulers.

96:3.4 (1056.1) Moses endeavored to negotiate diplomatically for the freedom of his fellow Semites. He and his brother entered into a compact with the king of Egypt whereby they were granted permission peaceably to leave the valley of the Nile for the Arabian Desert. They were to receive a modest payment of money and goods in token of their long service in Egypt. The Hebrews for their part entered into an agreement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Pharaohs and not to join in any alliance against Egypt. But the king later saw fit to repudiate this treaty, giving as his reason the excuse that his spies had discovered disloyalty among the Bedouin slaves. He claimed they sought freedom for the purpose of going into the desert to organize the nomads against Egypt.

96:3.5 (1056.2) But Moses was not discouraged; he bided his time, and in less than a year, when the Egyptian military forces were fully occupied in resisting the simultaneous onslaughts of a strong

일에 이집트의 무리가 충분히 몰두하게 되었을 때, 이 대담한 조직가는 자기 동포들을 이끌고 극적인 밤 여행을 통해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다. 해방을 위한 이 행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교묘하게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와 작은 규모의 이집트 부대에 의해 맹렬한 추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부대는 모두 도망자들의 반향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었으며, 이것들은 도주하는 노예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사막의 고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모든 것이 증강되어 갔다.

제 4 장. 야훼를 선포함

모세의 교훈의 진화와 향상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보다 더 진보된 이집트의 종교 철학을 모세가 이해한 반면, 베도인 노예들은 그러한 교훈들을 거의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호렙산의 하느님, 그들의 조상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을 전반적으로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세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왕족 혈통의 여자와 포로가 된 인종의 남자가 특이하게 연합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공통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 모세의 장인은 엘 엘리온을 경배하는 켄-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해방시킨 자의 부모들은 엘 샤다이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엘 샤다이를 믿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엘 엘리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부터 도망한 후 시나이 산에 머무를 무렵에는 신(神)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커지게 된 개념(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신념들로부터 유래된)을 이미 형성시킨 상태였는데, 현명하게도 그는 그것을 자기 민족의 전통적인 부족 신인 야훼에 대한 하나의 확대된 개념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세는 이 베도인 사람들에게 엘 엘리온의 관념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집트를 떠나기에 앞서서, 그는 그들이 이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하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그들의 사막의 부족 하느님을 타협안으로 채택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모세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른 하느님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야훼가 모든 존재들보다 위에 그 너머에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도인 부족들의 금송아지에 의해 항상 상징화되어 왔던, 야훼라는 옛 이름을 가장하여, 무지한 이 노예들에게 신(神)에 대한 보다 높고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거북스러운 상태 때문에 그는 항상 괴로워하였다.

야훼가 도망치는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거룩한 시나이 산 앞에서 그

Libyan thrust from the south and a Greek naval invasion from the north, this intrepid organizer led his compatriots out of Egypt in a spectacular night flight. This dash for liberty was carefully planned and skillfully executed. And they were successful, notwithstanding that they were hotly pursued by Pharaoh and a small body of Egyptians, who all fell before the fugitives' defense, yielding much booty, all of which was augmented by the loot of the advancing host of escaping slaves as they marched on toward their ancestral desert home.

4. THE PROCLAMATION OF YAHWEH

96:4.1 (1056.3) The evolution and elevation of the Mosaic teaching has influenced almost one half of all the world, and still does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While Moses comprehended the more advanced Egyptian religious philosophy, the Bedouin slaves knew little about such teachings, but they had never entirely forgotten the god of Mount Horeb, whom their ancestors had called Yahweh.

96:4.2 (1056.4) Moses had heard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from both his father and his mother, their commonness of religious belief being the explanation for the unusual union between a woman of royal blood and a man from a captive race. Moses' father-in-law was a Kenite worshiper of El Elyon, but the emancipator's parents were believers in El Shaddai. Moses thus was educated an El Shaddaist; through the influence of his father-in-law he became an El Elyonist; and by the time of the Hebrew encampment about Mount Sinai after the flight from Egypt, he had formulated a new and enlarged concept of Deity (derived from all his former beliefs), which he wisely decided to proclaim to his people as an expanded concept of their olden tribal god, Yahweh.

96:4.3 (1056.5) Moses had endeavored to teach these Bedouins the idea of El Elyon, but before leaving Egypt, he had become convinced they would never fully comprehend this doctrine. Therefore he deliberately determined upon the compromise adoption of their tribal god of the desert as the one and only god of his followers. Moses did not specifically teach that other peoples and nations might not have other gods, but he did resolutely maintain that Yahweh was over and above all, especially to the Hebrews. But always was he plagued by the awkward predicament of trying to present his new and higher idea of Deity to these ignorant slaves under the guise of the ancient term Yahweh, which had always been symbolized by the golden calf of the Bedouin tribes.

96:4.4 (1056.6) The fact that Yahweh was the god of the fleeing Hebrews explains why they tarried so

토록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와, 호렙산의 하느님인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공포하였던 십계명이 왜 그곳에서 그들이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시나이 산 앞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새로이 발전되는 히브리 경배의 종교적 예식들이 더욱 완전하게 되었다.

그들이 산 밑에서 엄숙하게 머무른 세 번째 주간 동안에 호렙산의 맹렬한 화산 분출이 없었더라면, 어느 정도 진보된 예식 경배의 제정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25년 동안 변하지 않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성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야훼의 산이 불 속에 타오르고, 연기가 마치 화로(火爐)의 연기처럼 올라갔으며,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고려한다면, 모세가 그들의 하느님이 “막강하시고, 무시무시하며, 맹렬한 불이시고, 무서우며, 만능이신” 것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쳤을 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리라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모세는 야훼가 직접 히브리인들을 선민(選民)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라고 선포하였다;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야훼가 엄격한 과업감독자, “질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현명하게 국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야훼가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느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은 너희의 피난처이시며 너희는 영속하는 팔 아래에 있다.”고 말할 때, 신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애썼다. 모세는 야훼가 계약을 지키시는 하느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너희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모세는 “진리이시며 사악한 불의가 없으신, 그의 모든 행사가 공의롭고 옳으신 하느님”으로 그를 표현하였을 때 야훼를 최극 신(神)의 존엄성으로 격상시키려는 영웅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양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제한된 납득 때문에 하느님을 사람의 형상, 화내고 복수하며 혹독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로, 그리고 심지어는 복수심이 불타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 쉽게 좌우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족의 자연계 하느님, 야훼는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 그들을 따라 광야로 나오고 방랑할 때까지도 따라오고, 그곳에서 드디어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으로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종으로 만든 후일의 포로 생활은, 야훼에 대한 진화하는 개념을,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신 일신교적 역할을 맡는다고 추정하도록 최종적으로 해방하였다.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은, 호렙산의 원시적인 하느님 개념으로부터, 그들의 뒤를 이은 영적 영도자들의 가르침을 거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long before the holy mountain of Sinai, and why they there received the ten commandments which Moses promulgated in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Horeb. During this lengthy sojourn before Sinai the religious ceremonials of the newly evolving Hebrew worship were further perfected.

96:4.5 (1057.1) It does not appear that Moses would ever have succ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his somewhat advanced ceremonial worship and in keeping his followers intact for a quarter of a century had it not been for the violent eruption of Horeb during the third week of their worshipful sojourn at its base. “The mountain of Yahweh was consumed in fire, and the smoke ascended like the smoke of a furnace, and the whole mountain quaked greatly.” In view of this cataclysm it is not surprising that Moses could impress upon his brethren the teaching that their God was “mighty, terrible, a devouring fire, fearful, and all-powerful.”

96:4.6 (1057.2) Moses proclaimed that Yahweh was the Lord God of Israel, who had singled out the Hebrews as his chosen people; he was building a new nation, and he wisely nationalized his religious teachings, telling his followers that Yahweh was a hard taskmaster, a “jealous God.” But nonetheless he sought to enlarge their concept of divinity when he taught them that Yahweh was the “God of the spirits of all flesh,” and when he said,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Moses taught that Yahweh was a covenant-keeping God; that he “will not forsake you, neither destroy you, nor forget the covenant of your fathers because the Lord loves you and will not forget the oath by which he swore to your fathers.”

96:4.7 (1057.3) Moses made a heroic effort to uplift Yahweh to the dignity of a supreme Deity when he presented him as the “God of truth and without iniquity, just and right in all his ways.” And yet, despite this exalted teaching, the limited understanding of his followers made it necessary to speak of God as being in man’s image, as being subject to fits of anger, wrath, and severity, even that he was vengeful and easily influenced by man’s conduct.

96:4.8 (1057.4) Under the teachings of Moses this tribal nature god, Yahweh, became the Lord God of Israel, who followed them through the wilderness and even into exile, where he presently was conceived of as the God of all peoples. The later captivity that enslaved the Jews in Babylon finally liberated the evolving concept of Yahweh to assume the monotheistic role of the God of all nations.

96:4.9 (1057.5) The most unique and amazing feature of the religious history of the Hebrews concerns this continuous evolution of the concept of Deity from the primitive god of Mount Horeb up through

창조자 하느님에 대한 장엄한 개념을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신(神) 교리 속에 묘사된 높은 차원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신(神) 개념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진화와 관계된다.

제 5 장. 모세의 가르침

모세는 군사 영도자, 사회 조직가, 그리고 종교 스승이 비범하게 병합된 사람이었다. 그는 마키벤타와 예수 사이의 기간 동안에 개별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의 스승이자 영도자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지금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많은 개혁 정책들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 사람의 삶의 기간 동안, 그는 이른바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여러 언어의 유목 집단을 노예 상태와 문명화되지 못한 방랑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였고 한편으로는 뒤이어 일어난 한 나라의 탄생과 한 종족의 영속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문자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귀하다. 그 시대와 모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그 위대한 영도자가 죽은 후 1,00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잔존하는 전승들로부터 유래되었다.

모세가 이집트인들과 주변의 레반트 지역 부족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진보들은 멜기세덱 시대의 켄-사람 전승들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마키벤타가 아브라함과 그의 동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은 아무 희망도 없는 암흑 속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는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들 중에서 남은 것들을 수집하였고, 이 교훈들은 이집트인들의 학문과 결합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예식을 개선하는 창안에 있어서 모세를 안내해 주었다. 모세는 조직가였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종교 그리고 사회관례들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선택하였고, 이 실천 관행들을 멜기세덱 교훈의 전승들과 결합시켜서, 히브리의 경배 예식 체계를 조직하였다.

모세는 섭리를 믿는 자였으며; 나일과 다른 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초자연적 통제와 관련하여 이집트의 교리들에 의해 이미 속속들이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위대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만일 하느님께 복종하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태(胎)의 열매와 너희 땅의 소산—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떼—을 배가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더욱 번영할 것이며,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로부터 물리치시고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때 그는 너무나도 진지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

the teachings of their successive spiritual leaders to the high level of development depicted in the Deity doctrines of the Isaiahs, who proclaimed that magnificent concept of the loving and merciful Creator Father.

5. THE TEACHINGS OF MOSES

96:5.1 (1057.6) Moses was an extraordinary combination of military leader, social organizer, and religious teacher. He was the most important individual world teacher and leader between the times of Machiventa and Jesus. Moses attempted to introduce many reforms in Israel of which there is no record. In the space of one man's life he led the polyglot horde of so-called Hebrews out of slavery and uncivilized roaming while h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subsequent birth of a nation and the perpetuation of a race.

96:5.2 (1057.7) There is so little on record of the great work of Moses because the Hebrews had no written language at the time of the exodus. The record of the times and doings of Moses was derived from the traditions extant more than one thousand years after the death of the great leader.

96:5.3 (1058.1) Many of the advances which Moses made over and above the religion of the Egyptians and the surrounding Levantine tribes were due to the Kenite traditions of the time of Melchizedek. Without the teaching of Machiventa to Abraham and his contemporaries, the Hebrews would have come out of Egypt in hopeless darkness. Moses and his father-in-law, Jethro, gathered up the residue of the traditions of the days of Melchizedek, and these teachings, joined to the learning of the Egyptians, guided Moses in the creation of the improved religion and ritual of the Israelites. Moses was an organizer; he selected the best in the religion and mores of Egypt and Palestine and, associating these practices with the traditions of the Melchizedek teachings, organized the Hebrew ceremonial system of worship.

96:5.4 (1058.2) Moses was a believer in Providence; he had become thoroughly tainted with the doctrines of Egypt concerning the supernatural control of the Nile and the other elements of nature. He had a great vision of God, but he was thoroughly sincere when he taught the Hebrews that, if they would obey God, “He will love you, bless you, and multiply you. He will multiply the fruit of your womb and the fruit of your land — the corn, wine, oil, and your flocks. You shall be prospered above all people, and the Lord your God will take away from you all sickness and will put none of the evil diseases of Egypt upon you.” He even said: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power to get wealth.” “You

에게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에게 빌려주겠으나, 너희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겠지만 너희는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이 모세가 무지하고 무식한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도록, 엘 엘리온, 지고자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개념을 적응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가엾은 일이었다. 모여 있는 자신의 영도자들에게 그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은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라고 외친 반면, 혼합된 군중들을 향해서는 “모든 하느님들 중에서 너희 하느님 같은 이가 누구이냐?”라고 선언하였다. 모세는 주물과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일에 용감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하는 위치를 굳혔는데, 그는 “하느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나와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날에 견줄만한 것을 너희가 본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모세는 야훼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하느님 중 하느님이시며, 주님중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하느님, 막강하고 무서운 하느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공의의 하느님으로 자기 민족을 겁먹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너희가 너희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너희가 그에게 복종하면 고쳐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거친 씨족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이 부족들에게 그들이 오직 “그의 모든 법규들에 복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에서만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초기시대 동안 하느님의 자비는 히브리인들에게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느님을 “전능자; 주님은 전쟁의 사람, 자기 적들을 궤멸시키는, 힘으로 영광스러운 전쟁터의 하느님”으로 배웠다.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영 한 가운데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또한 “무정한 바로의 가슴”을 갖고 “그들의 적을 저주하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우주적이고 인정 많은 신(神)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 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야훼에 대한 일상적인 개념은 하느님에 대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부족 하느님들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었다.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원시적이고 미숙하고, 사람모습의-신(神)이었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 배도원 부족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섬겼던 호렙산과 사막의 하느님들에 대한 반(半)야만적인 관념들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모세가 자기 영도자들에게 수시로 제시하였던 하느님에 대한 더욱 확대되고 탁월하였던 통찰력은 곧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훼에 대한 팔레스타인 목동들의 상징물인 금송아지로 만든 그들의 주물을 경배하는 쪽으로 되돌아갔다.

shall lend to many nations, but you shall not borrow. You shall reign over many nations, but they shall not reign over you.”

96:5.5 (1058.3) But it was truly pitiful to watch this great mind of Moses trying to adapt his sublime concept of El Elyon, the Most High, to the comprehension of the ignorant and illiterate Hebrews. To his assembled leaders he thundered, “The Lord your God is one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while to the mixed multitude he declared, “Who is like your God among all the gods?” Moses made a brave and partly successful stand against fetishes and idolatry, declaring, “You saw no similitude on the day that your God spoke to you at Horeb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He also forbade the making of images of any sort.

96:5.6 (1058.4) Moses feared to proclaim the mercy of Yahweh, preferring to awe his people with the fear of the justice of God, saying: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a great God, a mighty and terrible God, who regards not man.” Again he sought to control the turbulent clans when he declared that “your God kills when you disobey him; he heals and gives life when you obey him.” But Moses taught these tribes that they would become the chosen people of God only on condition that they “kept all his commandments and obeyed all his statutes.”

96:5.7 (1058.5) Little of the mercy of God was taught the Hebrews during these early times. They learned of God as “the Almighty; the Lord is a man of war, God of battles, glorious in power, who dashes in pieces his enemies.” “The Lord your God walks in the midst of the camp to deliver you.” The Israelites thought of their God as one who loved them, but who also “hardened Pharaoh’s heart” and “cursed their enemies.”

96:5.8 (1058.6) While Moses presented fleeting glimpses of a universal and beneficent Deity to the children of Israel, on the whole, their day-by-day concept of Yahweh was that of a God but little better than the tribal gods of the surrounding peoples. Their concept of God was primitive, crude, and anthropomorphic; when Moses passed on, these Bedouin tribes quickly reverted to the semibarbaric ideas of their olden gods of Horeb and the desert. The enlarged and more sublime vision of God which Moses every now and then presented to his leaders was soon lost to view, while most of the people turned to the worship of their fetish golden calves, the Palestinian herdsman’s symbol of Yahweh.

모세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는 이미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 그리고 관련된 부족들의 다른 수천 명의 방계 후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을 고쳐서 자아-지탱이 되게 하였고 목축을 하는 전사들로 구성된 부분적으로 자아-규율하는 민족이 되게 하였다.

제 6 장. 모세가 죽은 이후의 하느님 개념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자 야훼에 대한 그의 고상한 개념은 급속도로 저하되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전지하고 인정이 많으며 전능하신 하느님에 관한 모세의 전통들을 계속하여 품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야훼에 대한 옛날의 사막에서의 관념으로 신속하게 되돌아갔다. 그리고 신(神)에 대한 이러한 퇴보 경향은 소위 판관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부족 족장들의 연속되는 통치 밑에서 계속하여 점점 더 증가하였다.

모세의 비범한 개인성에 대한 매력은 그의 추종자들의 가슴속에 하느님에 대한 점점 더 확대되는 개념의 통찰력을 생생하게 유지시켰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단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자, 그들은 유목민 목축업자로부터 재빨리 진화하여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농민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생 실천 관행의 진화와 종교적인 관점의 변화는 그들의 하느님인 야훼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의 성격에 다소 완성된 변화를 요구하였다. 시나이 산의 엄격하고 미숙하고 가혹하고 우뢰 같이 소리치는 광야 하느님이 변형되어, 후대에 나타난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의 하느님의 개념으로 바뀌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고귀한 교훈들을 거의 잊게 되었다. 그들은 유일신교의 개념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유란시아의 영적인 진화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연결 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된 아들의 육신화 시기까지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멜기세덱 교훈을 보존할게 될 집단이 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부족들의 마음속에 최극 야훼의 개념을 유지시키려고 애썼으며,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하였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믿지 아니하는 자기 민족에게 단호한 복음을 전할 필요를 발견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졌던 옛날의 기원적 종교를 너무나도 기꺼이 믿으려고 하였지만, 신앙과 정의를 찾는 종교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주는 부담은 이러하였다: “야훼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고; 너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높은 개념은 야훼를 “능력과 심판과 공의의 하느님”으로 묘사하였다.

96:5.9 (1059.1) When Moses turned over the command of the Hebrews to Joshua, he had already gathered up thousands of the collateral descendants of Abraham, Nahor, Lot, and other of the related tribes and had whipped them into a self-sustaining and partially self-regulating nation of pastoral warriors.

6. THE GOD CONCEPT AFTER MOSES'

DEATH

96:6.1 (1059.2) Upon the death of Moses his lofty concept of Yahweh rapidly deteriorated. Joshua and the leaders of Israel continued to harbor the Mosaic traditions of the all-wise, beneficent, and almighty God, but the common people rapidly reverted to the older desert idea of Yahweh. And this backward drift of the concept of Deity continued increasingly under the successive rule of the various tribal sheiks, the so-called Judges.

96:6.2 (1059.3) The spell of the extraordinary personality of Moses had kept alive in the hearts of his followers the inspiration of an increasingly enlarged concept of God; but when they once reached the fertile lands of Palestine, they quickly evolved from nomadic herders into settled and somewhat sedate farmers. And this evolution of life practices and change of religious viewpoint demanded a more or less complete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ir conception of the nature of their God, Yahweh. During the times of the beginning of the transmutation of the austere, crude, exacting, and thunderous desert god of Sinai into the later appearing concept of a God of love, justice, and mercy, the Hebrews almost lost sight of Moses' lofty teachings. They came near losing all concept of monotheism; they nearly lost their opportunity of becoming the people who would serve as a vital link in the spiritual evolution of Urantia, the group who would conserve the Melchizedek teaching of one God until the times of the incarnation of a bestowal Son of that Father of all.

96:6.3 (1059.4) Desperately Joshua sought to hold the concept of a supreme Yahweh in the minds of the tribesmen, causing it to be proclaimed: “As I was with Moses, so will I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nor forsake you.” Joshua found it necessary to preach a stern gospel to his disbelieving people, people all too willing to believe their old and native religion but unwilling to go forward in the religion of faith and righteousness. The burden of Joshua's teaching became: “Yahweh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he will not forgive your transgressions nor your sins.” The highest concept of this age pictured Yahweh as a “God of power, judgment, and justice.”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대에 있어서도, 때때로 여러 독립적인 선생들이 일어나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전파하곤 하였다. “그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니, 사악한 너희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필사 사람이 하느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조물주보다 더 순수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하여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느냐? 완전에 이르는 전능자를 너희가 찾을 수 있느냐? 보라, 하느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능자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제 7 장. 시편과 읍기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족장들과 사제들의 지도하에 팔레스타인에서 영성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막에서의 미개한 신앙으로 되돌아갔으며 보다 덜 발달된 가나안-사람의 종교적 실천 관행들에 의해 오염되게 되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방종한 상태에 빠졌으며, 신(神)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아직 살아있는 특정한 살렘 집단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집트인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개념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는데, 그 개념들은 소위 읍기라 불리는 책과 시편의 일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작품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선생들에 의해 씌어졌다. 레반트 지역 사람들이 자연계 하느님들을 경배하던 이 시대 동안에도, 지고자, 엘 엘리온의 최극위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수집된 어떤 종교적 문서들도 시편 기록만큼 그토록 하느님에 대한 풍부한 영감어린 관념들과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놀랄만하게 수집된 이러한 경건한 문헌들을 정독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단일 수집품도 그러한 엄청난 기간 동안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각각 분리된 찬양과 경배의 시에 대한 출처와 연대를 고려할 수만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은 아메니뎀 때부터 이사야에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그리고 레반트 지역 전체에서 살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환영을 받았던,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기록한 것이다. 시편에서 보던 하느님이, 부족 신(神)의 투박한 관념으로부터 후대의 히브리인들의 크게 확대된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개념 속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야훼는 사랑이 많은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간주되었을 때, 시편의 이 작품들은 20세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 의해서 조합되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도움을 주는 신앙적 정서의 유형을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찬송 시들의 경건한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적 서적들보다 뛰어나다.

96:6.4 (1059.5) But even in this dark age, every now and then a solitary teacher would arise proclaiming the Mosaic concept of divinity: “You children of wickedness cannot serve the Lord, for he is a holy God.” “Shall mortal man be more just than God? shall a man be more pure than his Maker?” “Can you by searching find out God? Can you find out the Almighty to perfection? Behold, God is great and we know him not. Touching the Almighty, we cannot find him out.”

7. PSALMS AND THE BOOK OF JOB

96:7.1 (1060.1) Under the leadership of their sheiks and priests the Hebrews became loosely established in Palestine. But they soon drifted back into the benighted beliefs of the desert and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less advanced Canaanite religious practices. They became idolatrous and licentious, and their idea of Deity fell far below the Egyptian and Mesopotamian concepts of God that were maintained by certain surviving Salem groups, and which are recorded in some of the Psalms and in the so-called Book of Job.

96:7.2 (1060.2) The Psalms are the work of a score or more of authors; many were written by Egyptian and Mesopotamian teachers. During these times when the Levant worshiped nature gods, there were still a goodly number who believed in the supremacy of El Elyon, the Most High.

96:7.3 (1060.3) No collection of religious writings gives expression to such a wealth of devotion and inspirational ideas of God as the Book of Psalms. And it would be very helpful if, in the perusal of this wonderful collection of worshipful literature,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the source and chronology of each separate hymn of praise and adoration, bearing in mind that no other single collection covers such a great range of time. This Book of Psalms is the record of the varying concepts of God entertained by the believers of the Salem religion throughout the Levant and embraces the entire period from Amenemope to Isaiah. In the Psalms God is depicted in all phases of conception, from the crude idea of a tribal deity to the vastly expanded ideal of the later Hebrews, wherein Yahweh is pictured as a loving ruler and merciful Father.

96:7.4 (1060.4) And when thus regarded, this group of Psalms constitutes the most valuable and helpful assortment of devotional sentiments ever assembled by man up to the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worshipful spirit of this collection of hymns transcends that of all other sacred books of the world.

읍기에 묘사되어 있는 신(神)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는 거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명이 넘는 메소포타미아 종교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신앙들에 대한 이러한 수집품들 속에서 발견되는 신성에 대한 고상한 개념을 너희가 읽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동안 실제적인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의 주변지역이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느님의 모든-충만함과 지혜가 파악되는 경우는 때로 있었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가 파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자기 적들의 혼을 지배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을 보내는” 존재였으며; 자기에게 소속되고 복종하는 자녀들을 번영케 하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다. “그는 교활한 계락을 미워하고, 그들 자신의 책략에서 방법을 모색한다.”

오직 우르에서만 하느님의 자비를 외치려고 한 음성이 일어나 말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신성한 정의를 베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르로부터 신앙에 의해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구원이 이렇게 전파되었다: “그는 뉘우치는 자들에게 인자하시며, ‘내가 몸값을 받았으니, 그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행치 않았으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 하느님이 그의 혼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이며, 그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르의 선지자이고 살렘 신자들의 사제, 메소포타미아에 한 때 있었던 멜기세덱 거류민단 중에서 남은 자였던 엘리후의 이 특이한 교훈만큼 인간의 생존에 대한 그러한 우렁차고 기운차게 하는 메시지를, 멜기세덱 이후로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살렘 선교사들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자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직 조직화되기 이전 동안, 개념 위에 개념을 세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선생들의 긴 행렬에서의 첫 번째가 출현하기까지, 야훼 개념이 진화에서 절정에 달한 만유의 창조자 그리고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이상에서의 그들의 실현이 성취되기까지, 진리의 빛을 꺼트리지 않았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96:7.5 (1060.5) The variegated picture of Deity presented in the Book of Job was the product of more than a score of Mesopotamian religious teachers extending over a period of almost three hundred years. And when you read the lofty concept of divinity found in this compilation of Mesopotamian beliefs, you will recognize that it was in the neighborhood of Ur of Chaldea that the idea of a real God was best preserved during the dark days in Palestine.

96:7.6 (1060.6) In Palestine the wisdom and all-pervasiveness of God was often grasped but seldom his love and mercy. The Yahweh of these times “sends evil spirits to dominate the souls of his enemies”; he prospers his own and obedient children, while he curses and visits dire judgments upon all others. “He disappoints the devices of the crafty; he takes the wise in their own deceit.”

96:7.7 (1060.7) Only at Ur did a voice arise to cry out the mercy of God, saying: “He shall pray to God and shall find favor with him and shall see his face with joy, for God will give to man divine righteousness.” Thus from Ur there is preached salvation, divine favor, by faith: “He is gracious to the repentant and says, ‘Deliver him from going down in the pit, for I have found a ransom.’ If any say, ‘I have sinned and perverted that which was right, and it profited me not,’ God will deliver his soul from going into the pit, and he shall see the light.” Not since the times of Melchizedek had the Levantine world heard such a ringing and cheering message of human salvation as this extraordinary teaching of Elihu, the prophet of Ur and priest of the Salem believers, that is, the remnant of the onetime Melchizedek colony in Mesopotamia.

96:7.8 (1061.1) And thus did the remnants of the Salem missionaries in Mesopotamia maintain the light of truth during the period of the disorganization of the Hebrew peoples until the appearance of the first of that long line of the teachers of Israel who never stopped as they built, concept upon concept, until they had achieved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the Universal and Creator Father of all, the acme of the evolution of the Yahweh concept.

96:7.9 (1061.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7 편 히브리인 사이에서의 하느님의 개념의 진화

⇨ 096

유랜시아 책

09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7 편 히브리인 사이에서의 하느님
의 개념의 진화

섹션

소개

- 제 1 장. 사무엘—첫 번째 히브리 선지자
- 제 2 장. 엘리야와 엘리사
- 제 3 장. 야훼와 바알
- 제 4 장. 아모스와 호세아
- 제 5 장. 첫 번째 이사야
- 제 6 장. 대담한 예레미야
- 제 7 장. 두 번째 이사야
- 제 8 장. 신성한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
- 제 9 장. 히브리 역사
- 제 10 장. 히브리 종교

소개

히브리인들의 영적 영도자들은 그들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행동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던 일—철학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신(神)의 추상관념으로 전환됨이 없이, 자신들의 하느님 개념에서 사람모습-신(神)개념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 평민들까지도 야훼에 대한 성숙된 개념을 개별존재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종족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개념은, 멜기세덱의 시대에 살렘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졌던 반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던 시대에는 모호하고 불분명하였으며 세대가 지나가면서 영적인 영도자들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히브리인의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화되어갔다. 야훼의 개인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다른 신(神) 속성들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진화를 하였다.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인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개인성에 대한 관념화가 거의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 개념은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강화되고 영화롭게 되었다.

PAPER 97

EVOLUTION OF THE GOD
CONCEPT AMONG THE HEBREWS

SECTIONS

Introduction

- 1. Samuel — First of the Hebrew Prophets
- 2. Elijah and Elisha
- 3. Yahweh and Baal
- 4. Amos and Hosea
- 5. The First Isaiah
- 6. Jeremiah the Fearless
- 7. The Second Isaiah
- 8. Sacred and Profane History
- 9. Hebrew History
- 10. The Hebrew Religion

INTRODUCTION

97:0.1 (1062.1) THE spiritual leaders of the Hebrews did what no others before them had ever succeeded in doing — they deanthropomorphized their God concept without converting it into an abstraction of Deity comprehensible only to philosophers. Even common people were able to regard the matured concept of Yahweh as a Father, if not of the individual, at least of the race.

97:0.2 (1062.2)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of God, while clearly taught at Salem in the days of Melchizedek, was vague and hazy at the time of the flight from Egypt and only gradually evolved in the Hebraic mi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response to the teaching of the spiritual leaders. The perception of Yahweh's personality was much more continuous in its progressive evolution than was that of many other of the Deity attributes. From Moses to Malachi there occurred an almost unbroken ideational growth of the personality of God in the Hebrew mind, and this concept was

eventually heightened and glorified by the teachings of Jesus about the Father in heaven.

제 1 장. 사무엘—첫 번째 히브리 선지자

팔레스타인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적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히브리 족장들은 자신들의 부족 조직들이 동맹하여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관리적 권한의 이러한 집중화는 사무엘이 선생과 개혁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들을 자기들의 경배 형태들의 일부분으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로 하여금 거의 전반적인 저항을 견디어내게 하였는데, 그 저항은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모세 시대의 최극 야훼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 부딪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야훼에 대한 보다 높은 개념의 예배봉사에 히브리인들 중에서 좀 더 지능적인 절반만을 되돌려놓을 수 있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보다 열등한 야훼 개념과 그 고장의 부족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거친 형식의 남자, 어느 날 자기 연관-동료들과 함께 가서 여러 개의 바알 신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가였다. 그가 이룩한 진보는 충동적인 순수한 단체에 의해서였고; 그는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어느 날 그는 바알의 사제를 조롱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포로가 된 한 왕을 살해하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믿었으며, 그 유일하신 하느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주님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나 신(神)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 사무엘이 기여한 위대한 공헌은 야훼가 변함이 없다는, 언제까지나 틀림없는 완전성과 신성에서의 동일한 체현이라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에는 야훼가 질투심이 있는 변덕스러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느님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능력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신성(神性)과의 거래에 있어서 안정감이 선포되었다. 사무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멜기세덱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말하였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이 모든 진리와 안정성과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항상 하나의 사람,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인 하

1. SAMUEL — FIRST OF THE HEBREW PROPHETS

97.1.1 (1062.3) Hostile pressure of the surrounding peoples in Palestine soon taught the Hebrew sheiks they could not hope to survive unless they confederated their tribal organizations into a centralized government. And this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fforded a better opportunity for Samuel to function as a teacher and reformer.

97.1.2 (1062.4) Samuel sprang from a long line of the Salem teachers who had persisted in maintaining the truths of Melchizedek as a part of their worship forms. This teacher was a virile and resolute man. Only his great devotion, coupled with his extraordinary determination, enabled him to withstand the almost universal opposition which he encountered when he started out to turn all Israel back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of Mosaic times. And even then he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he won back to the service of the higher concept of Yahweh only the more intelligent half of the Hebrews; the other half continued in the worship of the tribal gods of the country and in the baser conception of Yahweh.

97.1.3 (1062.5) Samuel was a rough-and-ready type of man, a practical reformer who could go out in one day with his associates and overthrow a score of Baal sites. The progress he made was by sheer force of compulsion; he did little preaching, less teaching, but he did act. One day he was mocking the priest of Baal; the next, chopping in pieces a captive king. He devotedly believed in the one God, and he had a clear concept of that one God as creator of heaven and earth: “The pillars of the earth are the Lord’s, and he has set the world upon them.”

97.1.4 (1063.1) But the great contribution which Samuel mad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Deity was his ringing pronouncement that Yahweh was *changeless*, forever the same embodiment of unerring perfection and divinity. In these times Yahweh was conceived to be a fitful God of jealous whims, always regretting that he had done thus and so; but now,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Hebrews sallied forth from Egypt, they heard these startling words, “The Strength of Israel will not lie nor repent,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repent.” Stability in dealing with Divinity was proclaimed. Samuel reiterated the Melchizedek covenant with Abraham and declared that the Lord God of Israel was the source of all truth, stability, and constancy. Always had the Hebrews looked upon their God as a man, a

나의 초인간이라고 간주해 왔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 때 호렙의 영이던 그가 완전한 창조자인 변하지 아니하는 하느님으로 고양되었음을 듣게 되었다. 사무엘은 사람 마음의 변화하는 상태와 필사 실존의 변천을 넘어, 진화하는 하느님 개념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개념은 옛날의 부족 하느님들로부터 만능이신 변화가 없으신 창조자 그리고 모든 창조체의 감독자라는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새로이 전파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속하는 계약을 맺으셨으며, 모든 것에게 명하시고 지키신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에서는, 최극 야훼를 경배하라는 부름이 울려 퍼졌다. 활기에 찬 이 선생은 항상 “오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과 같은 이가 없으며,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느님 이십니다.”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주로 물질적인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먼지 속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서 영주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감히 선언하였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사무엘 자신의 목숨을 거의 바쳐야 할 정도였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으며, 가난한 자들 중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 하느님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야훼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였다고 선포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히브리인들의, 그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 주로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하더라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개념이 다시 한 번 거룩하고 공정한 신(神)을 나타내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느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머리가 희어진 늙은 그 영도자는 하느님에 대한 납득에 있어서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식의 하느님이시며, 행위들은 그에 의해서 측정된다. 주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들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며,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도 역시 정직하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비록 자비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비로운 자들에게만 국한된다. 나중에는 그가 한 걸음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들이 역경에 처하였을 때 그는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훈계하였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님을 속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superman, an exalted spirit of unknown origin; but now they heard the onetime spirit of Horeb exalted as an unchanging God of creator perfection. Samuel was aiding the evolving God concept to ascend to heights above the changing state of men's minds and the vicissitudes of mortal existence. Under his teaching, the God of the Hebrews was beginning the ascent from an idea on the order of the tribal gods to the ideal of an all-powerful and changeless Creator and Supervisor of all creation.

97.1.5 (1063.2) And he preached anew the story of God's sincerity, his covenant-keeping reliability. Said Samuel: "The Lord will not forsake his people." "He has made with us an everlasting covenant, ordered in all things and sure." And so, throughout all Palestine there sounded the call back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Ever this energetic teacher proclaimed, "You are great, O Lord God, for there is none like you, neither is there any God beside you."

97.1.6 (1063.3) Theretofore the Hebrews had regarded the favor of Yahweh mainly in terms of material prosperity. It was a great shock to Israel, and almost cost Samuel his life, when he dared to proclaim: "The Lord enriches and impoverishes; he debases and exalts. He raises the poor out of the dust and lifts up the beggars to set them among princes to make them inherit the throne of glory." Not since Moses had such comforting promises for the humble and the less fortunate been proclaimed, and thousands of despairing among the poor began to take hope that they could improve their spiritual status.

97.1.7 (1063.4) But Samuel did not progress very far beyond the concept of a tribal god. He proclaimed a Yahweh who made all men but was occupied chiefly with the Hebrews, his chosen people. Even so, as in the days of Moses, once more the God concept portrayed a Deity who is holy and upright. "There is none as holy as the Lord. Who can be compared to this holy Lord God?"

97.1.8 (1063.5) As the years passed, the grizzled old leader progressed in the understanding of God, for he declared: "The Lord is a God of knowledge, and actions are weighed by him.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showing mercy to the merciful, and with the upright man he will also be upright." Even here is the dawn of mercy, albeit it is limited to those who are merciful. Later he went one step further when, in their adversity, he exhorted his people: "Let us fall now into the hands of the Lord, for his mercies are great." "There is no restraint upon the Lord to save many or few."

그리고 야훼의 성격에 대한 개념에서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의 사명활동 밑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야훼를 계약을-지키는 하느님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사무엘이 내디딘 걸음을 도저히 유지하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말년에 이해하게 되었던 하느님의 자비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야훼가 모든 하느님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느님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지속적인 표류가 있었다. “오 주님, 왕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서 우두머리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조는 신성한 힘이었다;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 왕좌 위에 앉는 왕을 육성하도록 고안된 종교를 전파하였다. “오 주님, 위대함과 힘과 영광과 승리와 장엄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 안에 힘과 권세가 있으며, 당신은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강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그의 직계 후계자들이 살던 시절 동안의 하느님 개념이었다.

97:1.9 (1063.6) And this gradual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character of Yahweh continued under the ministry of Samuel's successors. They attempted to present Yahweh as a covenant-keeping God but hardly maintained the pace set by Samuel; they failed to develop the idea of the mercy of God as Samuel had later conceived it. There was a steady drift back toward the recognition of other gods, despite the maintenance that Yahweh was above all. “Yours is the kingdom, O Lord, and you are exalted as head above all.”

97:1.10 (1064.1) The keynote of this era was divine power; the prophets of this age preached a religion designed to foster the king upon the Hebrew throne.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victory and the majesty. In your hand is power and might, and you are able to make great and to give strength to all.” And this was the status of the God concept during the time of Samuel and his immediate successors.

제 2 장.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스도 이전 10세기경에 히브리 국가는 두 왕국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뉜 두 나라 모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분단 전쟁 이후에도 비참하게 계속되었던 그리고 이미 깊어진 영적 퇴폐에서의 반작용하는 물결을 저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히브리 종교를 발전시키려는 이 노력들은, 정의를 향하여 단호하고 대담한 전사였던 엘리야가 그의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번영하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사무엘 시대에 필적할만한 하느님 개념을 북(北) 왕국에 부활시켰다. 엘리야는 하느님에 대하여 진보된 개념을 제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그에 앞서서 하였던 것처럼, 그도 역시 잘못된 하느님들에 대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단들을 뒤집어엎기 바빴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의 반대에 직면하여 자신의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으며; 그의 과업은 사무엘이 당면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웠다.

엘리야가 불려간 후에는, 그의 신실한 연관-동료였던 엘리사가 그의 일을 떠맡았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가야의 매우 귀중한 도움을 얻어, 팔레스타인에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신(神)에 대한 개념이 진보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히브리인들은 아직 모세의 개념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최극 야훼의 경배로 돌아가는 보다 나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으며, 사무엘이 남겨둔 그 자리에 우주적 창조자에 대한 관념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함으로 끝을 맺었다.

2. ELIJAH AND ELISHA

97:2.1 (1064.2) In the tenth century before Christ the Hebrew nation became divided into two kingdoms. In both of these political divisions many truth teachers endeavored to stem the reactionary tide of spiritual decadence that had set in, and which continued disastrously after the war of separation. But these efforts to advance the Hebraic religion did not prosper until that determined and fearless warrior for righteousness, Elijah, began his teaching. Elijah restored to the northern kingdom a concept of God comparable with that held in the days of Samuel. Elijah had little opportunity to present an advanced concept of God; he was kept busy, as Samuel had been before him, overthrowing the altars of Baal and demolishing the idols of false gods. And he carried forward his reforms in the face of the opposition of an idolatrous monarch; his task was even more gigantic and difficult than that which Samuel had faced.

97:2.2 (1064.3) When Elijah was called away, Elisha, his faithful associate, took up his work and, with the invaluable assistance of the little-known Micaiah, kept the light of truth alive in Palestine.

97:2.3 (1064.4) But these were not times of progress in the concept of Deity. Not yet had the Hebrews ascended even to the Mosaic ideal. The era of Elijah and Elisha closed with the better classes returning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and witnessed the restoration of the idea of the Universal Creator to about that place where Samuel had left it.

제 3 장. 야훼와 바알

야훼를 믿는 사람들과 바알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논쟁은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념상의 사회경제적 충돌이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남부 또는 방랑하는 아라비아 부족들(야훼를 숭배하는 자들)은 땅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그 씨족에게 준 신(神)의 선물로—간주하였다. 그들은 그 땅이 팔리거나 저당 잡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야훼께서는 ‘그 땅이 내 것이니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북쪽에 있는 보다 더 정착된 가나안-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자기들의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았으며 저당을 잡히곤 하였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한다. 바알 예배종파는 두 개의 주요 교리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는, 재산의 교환과 서약 그리고 계약—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의 확증이었다. 두 번째는, 바알—땅을 비옥하게 하는 하느님—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양질의 곡식이 맺히는 것은 바알의 은혜라고 믿었다. 그 예배종파는 주로 땅에, 그것의 소유권과 비옥함에 관심을 두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집과 땅과 노예를 소유하였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귀족들이었고 도시들에서 살았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 각각 하나의 신성시되는 장소와 사제 그리고 “성스러운 여인들”, 예식적인 매춘부들이 있었다.

땅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 외에도, 가나안-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반목이 진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논쟁은 엘리야의 시대 이전에는 하나의 명확한 종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욕적인 이 선지자의 시대 때부터, 그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 종교적 계통들 사이—야훼와 바알—의 투쟁거리가 되었으며 야훼의 승리로 끝났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은 유일신교를 추구하였다.

엘리야는 야훼-바알 논쟁을 땅에 대한 문제로 부터 히브리인과 가나안-사람들의 관념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으로 전환시켰다. 아합 왕이 나봇 가문의 땅을 차지할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는 땅과 관계되는 옛날의 사회관례들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것은 도시인들에 의한 지배에 항거하는 시골 사람들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야훼가 엘로힘이 된 것은 주로 엘리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선지자는 토지 개혁자로 출발하여 신(神)을 고양시키는 일로 끝을 맺었다. 바알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야훼는 하나였다—유일신교가 다신교를 이겼다.

제 4 장. 아모스와 호세아

3. YAHWEH AND BAAL

97:3.1 (1064.5) The long-drawn-out controversy between the believers in Yahweh and the followers of Baal was a socioeconomic clash of ideologies rather than a difference in religious beliefs.

97:3.2 (1064.6) The inhabitants of Palestine differed in their attitude toward private ownership of land. The southern or wandering Arabian tribes (the Yahwehites) looked upon land as an inalienable — as a gift of Deity to the clan. They held that land could not be sold or mortgaged. “Yahweh spoke, saying,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 the land is mine.’”

97:3.3 (1064.7) The northern and more settled Canaanites (the Baalites) freely bought, sold, and mortgaged their lands. The word Baal means owner. The Baal cult was founded on two major doctrines: First, the validation of property exchange, contracts, and covenants — the right to buy and sell land. Second, Baal was supposed to send rain — he was a god of fertility of the soil. Good crops depended on the favor of Baal. The cult was largely concerned with *land*, its ownership and fertility.

97:3.4 (1065.1) In general, the Baalites owned houses, lands, and slaves. They were the aristocratic landlords and lived in the cities. Each Baal had a sacred place, a priesthood, and the “holy women,” the ritual prostitutes.

97:3.5 (1065.2) Out of this basic difference in the regard for land, there evolved the bitter antagonisms of social, economic, moral, and religious attitudes exhibited by the Canaanites and the Hebrews. This socioeconomic controversy did not become a definite religious issue until the times of Elijah. From the days of this aggressive prophet the issue was fought out on more strictly religious lines — Yahweh vs. Baal — and it ended in the triumph of Yahweh and the subsequent drive toward monotheism.

97:3.6 (1065.3) Elijah shifted the Yahweh-Baal controversy from the land issue to the religious aspect of Hebrew and Canaanite ideologies. When Ahab murdered the Naboths in the intrigue to get possession of their land, Elijah made a moral issue out of the olden land mores and launched his vigorous campaign against the Baalites. This was also a fight of the country folk against domination by the cities. It was chiefly under Elijah that Yahweh became Elohim. The prophet began as an agrarian reformer and ended up by exalting Deity. Baals were many, Yahweh was *one* — monotheism won over polytheism.

4. AMOS AND HOSEA

부족 하느님 개념—그토록 오랫동안 희생 제물들과 예식이 바쳐졌던 하느님, 초기 히브리인들의 야훼—으로부터 자기 자손들의 죄와 부도덕성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느님 개념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아모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출현하여 북부에 있는 부족들의 범죄와 술 취함 그리고 억압과 부도덕성을 비난하였다. 모세의 시대 이후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진리가 선포된 적이 없었다.

아모스는 단순한 원상복귀 또는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다; 신(神)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선조들에 의해 알려졌던 하느님에 관해 많은 것을 전파하였고, 소위 선택된 민족 가운데에 있는 죄를 묵인하고자 하는 그 신성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용감하게 공격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국가적인 공의와 도덕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 선언되는 것을 들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들 자신의 하느님인 야훼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야훼는 그들의 삶 속에서 범죄와 죄를 허용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민족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아모스는 사무엘과 엘리야의 엄격하고 공의로운 하느님을 그렸지만, 그는 또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내릴 때 어떤 다른 나라와 전혀 다름이 없이 히브리인들을 취급하는 하느님이신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선민(選民)”에 대한 이기주의적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만드신 이가, 일곱 별들과 오리온 성좌를 지으신, 죽음의 그림자를 바꾸어 아침이 되게 하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시는 그를 찾는다.” 반(半) 종교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야훼의 곱하지 아니하는 공의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음부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취할 것이다; 그들이 비록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적군 앞에서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공의의 칼을 휘두를 것이며, 그것이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아모스가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손짓을 하면서 야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더욱 놀랐다: “너희가 행한 것들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체질을 하여 곡식을 골라내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골라낼 것이다.”

아모스는 야훼를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으로 선포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식(禮式)이 정의를 결코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 용감한 선생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최종 야훼에 대한 교리를 보존시키기에 충분한 진리의 누룩을 퍼뜨려 놓았다; 멜기세덱 계시가 더욱 발전하도록 보장해 놓았다.

호세아가 아모스의 뒤를 이었고 사랑 넘치는

97:4.1 (1065.4) A great step in the transition of the tribal god — the god who had so long been served with sacrifices and ceremonies, the Yahweh of the earlier Hebrews — to a God who would punish crime and immorality among even his own people, was taken by Amos, who appeared from among the southern hills to denounce the criminality, drunkenness, oppression, and immorality of the northern tribes. Not since the times of Moses had such ringing truths been proclaimed in Palestine.

97:4.2 (1065.5) Amos was not merely a restorer or reformer; he was a discoverer of new concepts of Deity. He proclaimed much about God that had been announced by his predecessors and courageously attacked the belief in a Divine Being who would countenance sin among his so-called chosen peopl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ays of Melchizedek the ears of man heard the denunciation of the double standard of national justice and moralit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Hebrew ears heard that their own God, Yahweh, would no more tolerate crime and sin in their lives than he would among any other people. Amos envisioned the stern and just God of Samuel and Elijah, but he also saw a God who thought no differently of the Hebrews than of any other nation when it came to the punishment of wrongdoing. This was a direct attack on the egoistic doctrine of the “chosen people,” and many Hebrews of those days bitterly resented it.

97:4.3 (1065.6) Said Amos: “He who formed the mountains and created the wind, seek him who formed the seven stars and Orion, who turns the shadow of death into the morning and makes the day dark as night.” And in denouncing his half-religious, timeserving, and sometimes immoral fellows, he sought to portray the inexorable justice of an unchanging Yahweh when he said of the evildoers: “Though they dig into hell, thence shall I take them; though they climb up to heaven, thence will I bring them down.” “And though they go into captivity before their enemies, thence will I direct the sword of justice, and it shall slay them.” Amos further startled his hearers when, pointing a reproving and accusing finger at them, he declared in the name of Yahweh: “Surely I will never forget any of your works.” “And I will sift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nations as wheat is sifted in a sieve.”

97:4.4 (1066.1) Amos proclaimed Yahweh the “God of all nations” and warned the Israelites that ritual must not take the place of righteousness. And before this courageous teacher was stoned to death, he had spread enough leaven of truth to save the doctrine of the supreme Yahweh; he had insured the further evolution of the Melchizedek revelation.

97:4.5 (1066.2) Hosea followed Amos and his doctrine

하느님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써 우주적인 공의의 하느님에 대한 그의 교리를 이어받았다. 호세아는 희생 제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자애로움과 신성한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약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정의와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자애로움과 자비를 통하여 너희와 약혼을 맺을 것이다. 또한 나는 신실함으로 너희와 약혼을 맺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아무 값없이 사랑할 것이다.

호세아는 아모스의 도덕적인 경고를 신실하게 계속 전하면서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그가 “나의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민족이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반역에 해당하는 잔혹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회개와 용서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고쳐줄 것이다; 나의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값없이 사랑할 것이다.” 호세아는 항상 희망과 용서를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은 항상 이러하였다: “나는 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나만을 하느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아모스는 히브리인들의 국가적인 의식을 자극하여,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은 범죄와 죄를 야훼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한 반면, 호세아는 이사야와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매우 절묘하게 찬미되었던 신성한 연민과 자애에 대한 후대의 자비로운 화음에 있어서 서두를 장식하였다.

제 5 장. 첫 번째 이사야

이 시대에는 북부 지방의 씨족들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죄와 국가적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적으로 선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남 왕국의 범죄에 대하여 징벌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첫 번째 이사야가 출현한 것은 히브리 국가들 속에서 양심과 의식이 자극되기 시작할 때였다.

이사야는 하느님의 영원한 본성, 그의 변치 아니하는 완전한 확실성을 전파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한 내가 그 저울의 줄을 판단하고 추를 정의를 할 것이다.” “너희가 매여 지내도록 만들어진 슬픔과 두려움과 굳은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귀는 너희 뒤에서 울리는 ‘이것이 그 길이다, 여기로 걸어라’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생존이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찬송이시니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와서 우리가 함께 따져

of a universal God of justice by the resurrection of the Mosaic concept of a God of love. Hosea preached forgiveness through repentance, not by sacrifice. He proclaimed a gospel of loving-kindness and divine mercy, saying: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yes, I will betroth you to me 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and in loving-kindness and in mercies. I will even betroth you to me in faithfulness.”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is turned away.”

97.4.6 (1066.3) Hosea faithfully continued the moral warnings of Amos, saying of God, “It is my desire that I chastise them.” But the Israelites regarded it as cruelty bordering on treason when he said: “I will say to those who were not my people, ‘you are my people’; and they will say, ‘you are our God.’” He continued to preach repentance and forgiveness, saying,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is turned away.” Always Hosea proclaimed hope and forgiveness. The burden of his message ever was: “I will have mercy upon my people. They shall know no God but me, for there is no savior beside me.”

97.4.7 (1066.4) Amos quickened the national conscience of the Hebrews to the recognition that Yahweh would not condone crime and sin among them because they were supposedly the chosen people, while Hosea struck the opening notes in the later merciful chords of divine compassion and loving-kindness which were so exquisitely sung by Isaiah and his associates.

5. THE FIRST ISAIAH

97.5.1 (1066.5) These were the times when some were proclaiming threatenings of punishment against personal sins and national crime among the northern clans while others predicted calamity in retribution for the transgressions of the southern kingdom. It was in the wake of this arousal of conscience and consciousness in the Hebrew nations that the first Isaiah made his appearance.

97.5.2 (1066.6) Isaiah went on to preach the eternal nature of God, his infinite wisdom, his unchanging perfection of reliability. He represented the God of Israel as saying: “Judgment also will I lay to the line and righteousness to the plummet.” “The Lord will give you rest from your sorrow and from your fear and from the hard bondage wherein man has been made to serve.” “And your ears shall hear a word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for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보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두려움에 떨고 굶주린 혼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빛이 임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솟아올랐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주님의 영이 나에게 계시며; 그는 비탄에 잠긴 자들을 싸매 주기 위하여, 포로 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묶인 자들에게는 옥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그의 정의의 외투로 나를 가리셨으므로, 나는 주를 크게 기쁨으로 향유하며 나의 혼은 내 하느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셨고, 그의 현존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하였다. 그가 자기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구하셨다.”

이 이야아 뒤에는 미가와 오바댜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의 혼을-만족시키는 복음을 확립시키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이 두 용감한 메신저들은 성직자의 지배하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예식을 담대하게 비난하였으며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체계 전체를 겁 없이 공격하였다.

미가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판하는 통치자들과 급료를 받기 위해 가르치는 사제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신과 성직자 제도로부터 해방될 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모든 민족이 하느님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에 따라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의 메시지가 항상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러하였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느님 앞으로 올 것인가? 주님께서 천 마리의 숫양과 큰 강물과 같은 기름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범죄를 씻기 위하여, 내 혼의 죄 대신에 내 육체의 열매인 첫 태생을 바칠 것인가? 오 사람들아, 그는 무엇이 선한지를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로 행할 것과 자비로 사랑할 것 그리고 너희 하느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의 위대한 시대였으며; 2,500년 전에 끊어졌던 그러한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필사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게까지 된, 정말로 감동적인 시대였다. 그리고 사제들의 완고한 저항이 없었다면, 이 선생들은 피를 흘리는 히브리인들의 경배 예식 전체를 폐지시켰을 것이다.

제 6 장. 대담한 예레미야

여러 선생들이 이야아의 복음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동안,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인 야훼를 국제화시키는, 그 다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th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97:5.3 (1066.7) Speaking to the fear-ridden and soul-hungry Hebrews, this prophet said: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tidings to the meek;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who are bound.” “I will greatly rejoice in the Lord, my soul shall be joyful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and has covered me with his robe of righteousness.” “In all their afflictions he was afflicted, and the angel of his presence saved them. In h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med them.”

97:5.4 (1067.1) This Isaiah was followed by Micah and Obadiah, who confirmed and embellished his soul-satisfying gospel. And these two brave messengers boldly denounced the priest-ridden ritual of the Hebrews and fearlessly attacked the whole sacrificial system.

97:5.5 (1067.2) Micah denounced “the rulers who judge for reward and the priests who teach for hire and the prophets who divine for money.” He taught of a day of freedom from superstition and priestcraft, saying: “But every man shall sit under his own vine, and no one shall make him afraid, for all people will live, each one according to his understanding of God.”

97:5.6 (1067.3) Ever the burden of Micah's message was: “Shall I come before God with burnt offerings?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a thousand rams or with ten thousand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He has shown me,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And it was a great age; these were indeed stirring times when mortal man heard, and some even believed, such emancipating messages more than two and a half millenniums ago. And but for the stubborn resistance of the priests, these teachers would have overthrown the whole bloody ceremonial of the Hebrew ritual of worship.

6. JEREMIAH THE FEARLESS

97:6.1 (1067.4) While several teachers continued to expound the gospel of Isaiah, it remained for Jeremiah to take the next bold step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ahweh, God of the Hebrews.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데 있어서 야훼가 히브리인들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야훼가 지구 전체의 하느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 이시라고 주장하였다.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국제화시키는 상승 파도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대담한 이 전도자는 야훼가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시며 이집트인들을 위한 오시리스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위한 벨이나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아슈르 또는 필리스틴 사람들을 위한 다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의 종교는 이 시대 무렵과 그 이후에 유일신교의 부흥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게 되었다; 마침내 야훼의 개념은 행성에서의 그리고 심지어는 조화우주 존엄성을 갖는 신(神)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연관-동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야훼를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사가가 묘사하였던 공의와 사랑 넘치는 하느님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렇다, 나는 영속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애로움으로 너희를 끌어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자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시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조언에서 위대하시며 그리고 실행에서 강력하시다. 그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 그리고 그의 방법에 따라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든 자손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살피신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동안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나의 중이며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브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을 때 불경스러운 반역죄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조언하였을 때 사제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를 비참한 지하 감옥인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제 7 장. 두 번째 이사가

히브리 나라가 파괴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포로가 된 일은, 그들의 사제 무리들의 단순한 행동만 없었다면, 그들의 확대되는 신학에 큰 유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의 나라는 바빌로니아 무리 앞에서 무너졌으며, 그들의 민족적인 야훼 개념은 영적인 영도자들의 국제적인 훈계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모든 나라들의 국제화된 하느님에 대한 새롭고도 확대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히브리 역사상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여러 배로 늘이고 그토록 긴 전설들을 창조하도록 유대인 사제들을 유도한 것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하느님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전통들과 전설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이 빌려온 갈대아인들의 이야기들의 도

97:6.2 (1067.5) Jeremiah fearlessly declared that Yahweh was not on the side of the Hebrews in their military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He asserted that Yahweh was God of all the earth, of all nations and of all peoples. Jeremiah's teaching was the crescendo of the rising wav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God of Israel; finally and forever did this intrepid preacher proclaim that Yahweh was God of all nations, and that there was no Osiris for the Egyptians, Bel for the Babylonians, Ashur for the Assyrians, or Dagon for the Philistines. And thus did the religion of the Hebrews share in that renaissance of monotheism throughout the world at about and following this time; at last the concept of Yahweh had ascended to a Deity level of planetary and even cosmic dignity. But many of Jeremiah's associates found it difficult to conceive of Yahweh apart from the Hebrew nation.

97:6.3 (1067.6) Jeremiah also preached of the just and loving God described by Isaiah, declaring: “Yes,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erefore with loving-kindness have I drawn you.” “For he does not afflict willingly the children of men.”

97:6.4 (1067.7) Said this fearless prophet: “Righteous is our Lord, great in counsel and mighty in work. His eyes are open upon all the ways of all the sons of men, to give every one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 But it was considered blasphemous treason when, during the siege of Jerusalem, he said: “And now have I given these lands into the hand of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my servant.” And when Jeremiah counseled the surrender of the city, the priests and civil rulers cast him into the miry pit of a dismal dungeon.

7. THE SECOND ISAIAH

97:7.1 (1068.1) The destruction of the Hebrew nation and their captivity in Mesopotamia would have proved of great benefit to their expanding theology had it not been for the determined action of their priesthood. Their nation had fallen before the armies of Babylon, and their nationalistic Yahweh had suffered from the international preachments of the spiritual leaders. It was resentment of the loss of their national god that led the Jewish priests to go to such lengths in the invention of fables and the multiplication of miraculous appearing events in Hebrew history in an effort to restore the Jews as the chosen people of even the new and expanded idea of an internationalized God of all nations.

97:7.2 (1068.2) During the captivity the Jews were much influenced by Babylonian traditions and legends, al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덕적인 격조와 영적인 의의(意義)를 충실하게 개선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이 전설들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역사에 명예와 영광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이들 히브리 사제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관념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유대나라의 회복, 히브리 전통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들의 인종적인 역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 사제들이 서방 세계의 그토록 넓은 지역에 그들의 잘못된 관념들을 심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들이 이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성서적 책이 쓰일 수 있는 아무런 전문 계층도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동료들의 저하되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하나의 교과서를 준비하였던 것뿐이다. 그들은 자기 동포들의 민족적 영과 사기를 증대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그것이 후대까지 남아있게 되어 사람들은 이것들과 다른 문헌들을 조합하여 마치 오류가 없는 가르침인 듯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사제들은 이 문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지만, 첫 번째 이사야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의 하느님에게로 충분히 전향한, 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두 번째 이사야의 현존으로써 그들의 동료 포로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크게 뒤흔들음을 받았다. 그는 또한 야훼가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 되셨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개종자들을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이 이론들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 젊은 전도자는 자기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첫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 속에 그것들을 편입시키도록 유도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대해 존중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적대적이고 앙심을 품은 사제들은 그를 제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은 40장부터 55장에 삽입되면서 그 이름으로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키벤타 부터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지자나 종교적 선생도 이 포로 시대에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하였던 높은 하느님 개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영적인 영도자가 선포한 것은 작은, 사람모습의-신(神), 사람이 만든 하느님이 결코 아니었다. “보라, 그가 섬들을 매우 작은 물건처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마침내 인간 선생이 실제 하느님을 필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 영도자는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전파하였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내가 쓸데없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

unfailingly improved the moral tone and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Chaldean stories which they adopted, notwithstanding that they invariably distorted these legends to reflect honor and glory upon the ancestry and history of Israel.

97.7.3 (1068.3) These Hebrew priests and scribes had a single idea in their minds, and that was the rehabilitation of the Jewish nation, the glorification of Hebrew traditions, and the exaltation of their racial history. If there is resentment of the fact that these priests have fastened their erroneous ideas upon such a large part of the Occidental worl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y did not intentionally do this; they did not claim to be writing by inspiration; they made no profession to be writing a sacred book. They were merely preparing a textbook designed to bolster up the dwindling courage of their fellows in captivity. They were definitely aiming at improving the national spirit and morale of their compatriots. It remained for later-day men to assemble these and other writings into a guide book of supposedly infallible teachings.

97.7.4 (1068.4) The Jewish priesthood made liberal use of these writings subsequent to the captivity, but they were greatly hindered in their influence over their fellow captives by the presence of a young and indomitable prophet, Isaiah the second, who was a full convert to the elder Isaiah's God of justice, love, righteousness, and mercy. He also believed with Jeremiah that Yahweh had become the God of all nations. He preached these theories of the nature of God with such telling effect that he made converts equally among the Jews and their captors. And this young preacher left on record his teachings, which the hostile and unforgiving priests sought to divorce from all association with him, although sheer respect for their beauty and grandeur led to their incorporation among the writings of the earlier Isaiah. And thus may be found the writings of this second Isaiah in the book of that name, embracing chapters forty to fifty-five inclusive.

97.7.5 (1068.5) No prophet or religious teacher from Machiventa to the time of Jesus attained the high concept of God that Isaiah the second proclaimed during these days of the captivity. It was no small, anthropomorphic, man-made God that this spiritual leader proclaimed. “Behold he takes up the isles as a very little thing.” “An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higher than your thoughts.”

97.7.6 (1069.1) At last Machiventa Melchizedek beheld human teachers proclaiming a real God to mortal man. Like Isaiah the first, this leader preached a God of universal creation and upholding. “I have made the earth and put man upon it. I have created it not in vain; I formed it to be inhabited.” “I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전하면서, 새로 나타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점점 쇠퇴할 수 있지만, 나의 정의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의 생존은 세대마다 계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 하느님이니 너희는 놀라지 마라.” “나 외에는 하느님—공의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 없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후로 계속 다 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유대인 포로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되찾았고, 너희 이름으로 너희를 불렀으며;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물을 지나갈 때, 너희가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잃음으로써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 여인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손의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였다.”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며,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후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살렘의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의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그가 목동처럼 자기 양 떼들을 먹이실 것이다; 양들을 자기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옮기실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는 그가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로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산을 오를 것이다; 뛰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더라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최극 야훼의 확대되는 개념의 복음을 멀리-미치도록 선전을 수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우주적 창조자로 묘사하는 웅변술에 있어서 모세와 경쟁이 될 만 하였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시적(詩的)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여 더 아름다운 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글들은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착되기 전에 필사 사람의 귀에 들려졌던 하느님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참되게 제시된 영적 개념들에 속하였다. 신(神)에 대한 이 묘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영원 속에 거주하는 높고도 고상한 존재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 “또한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한 반면에 당당한 이 선지자가 신성한 불변성,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하여 훈계하였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교리였다. 그는 “하느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am the first and the last; there is no God beside me.” Speaking for the Lord God of Israel, this new prophet said: “The heavens may vanish and the earth wax old, but my righteousness shall endure forever and my salv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ear you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There is no God beside me — a just God and a Savior.”

97:7.7 (1069.2) And it comforted the Jewish captives, as it has thousands upon thousands ever since, to hear such words as: “Thus says the Lord, ‘I have created you,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since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Can a woman forget her suckling child that she should not have compassion on her son? Yes, she may forget, yet will I not forget my children, for behold I have graven them upon the palms of my hands; I have even covered them with the shadow of my hands.”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s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up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97:7.8 (1069.3) Listen again to the gospel of this new revelation of the God of Salem: “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shall gather the lambs in his arms and carry them in his bosom. He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o those who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Those who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as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97:7.9 (1069.4) This Isaiah conducted a far-flung propaganda of the gospel of the enlarging concept of a supreme Yahweh. He vied with Moses in the eloquence with which he portrayed the Lord God of Israel as the Universal Creator. He was poetic in his portrayal of the infinite attributes of the Universal Father. No more beautiful pronouncements about the heavenly Father have ever been made. Like the Psalms, the writings of Isaiah are among the most sublime and true presentations of the spiritual concept of God ever to greet the ears of mortal man prior to the arrival of Michael on Urantia. Listen to his portrayal of Deity: “I am the high and lofty one who inhabits eternity.”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beside me there is no other God.” “And the Lord’s hand is not shortened that it cannot save, neither his ear heavy that it cannot hear.” And it was a new doctrine in Jewry when this benign but commanding prophet persisted in the preachment of divine constancy, God’s faithfulness. He declared that “God would not forget, would not forsake.”

이 용감한 선생은 사람이 하느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각 사람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그들의 범죄를 지워버리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이 위대한 히브리인이 민족의 하느님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한편 영광 속에서 그가 우주 아버지의 신성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우주 아버지에 대하여 그는 “하늘들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하느님은 거룩하고 장엄하고 정의로우며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사막에 거주하는 베도윈 족속의 화내고 복수심에 불타며 질투하는 야훼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최극이며 우주적인 야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사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신성한 공의의 실현은 원시적인 마술과 생물학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사람은 법과 질서의 하나의 우주,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최종적 속성의 우주적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숭고하신 하느님을 전파한 이 전도자는 이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생은 위로를 주는 더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를 계속 인도하시고 너희 혼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물을 뿌린 정원과 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게 되면, 주님의 영이 그의 앞에 방어물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멜기세덱의 복음과 신뢰감을 조성하는 살렘의 종교가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였다.

선견지명이 있고 용감한 이사야는 최극자 야훼, 사랑 넘치는 하느님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류에게 애정이 깊으신 아버지의 장엄하심과 우주적인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숭고한 묘사에 의해서 민족적인 야훼를 효과적으로 가렸다. 그 사건 많은 날들 이후로 항상, 서방에서의 가장 높은 하느님 개념은 우주적인 공의와 신성한 자비 그리고 영원한 정의를 포용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선생은 뛰어난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견줄 데 없는 우아함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능이신 창조자를 묘사하였다.

포로 된 자들과 함께 한 이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의 강가에서 듣는 자기 민족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약속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많은 개념들과 인종적 이기주의의 개념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만일에 사제들이 오해된 민족주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두 명의 이사야의 가르침이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97.7.10 (1069.5) This daring teacher proclaimed that man was very closely related to God, saying: “Every one who is called by my name I have created for my glory, and they shall show forth my praise. I, even I, am he who blots out thei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their sins.”

97.7.11 (1069.6) Hear this great Hebrew demolish the concept of a national God while in glory he proclaims the divinity of the Universal Father, of whom he says, “The heavens are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And Isaiah’s God was none the less holy, majestic, just, and unsearchable. The concept of the angry, vengeful, and jealous Yahweh of the desert Bedouins has almost vanished. A new concept of the supreme and universal Yahweh has appeared in the mind of mortal man, never to be lost to human view. The realization of divine justice has begun the destruction of primitive magic and biologic fear. At last, man is introduced to a universe of law and order and to a universal God of dependable and final attributes.

97.7.12 (1070.1) And this preacher of a supernal God never ceased to proclaim this *God of love*.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 also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and humble spirit.” And still further words of comfort did this great teacher speak to his contemporaries: “And the Lord will guide you continually and satisfy your soul. You shall be like a 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whose waters fail not. And if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will lift up a defense against him.” And once again did the fear-destroying gospel of Melchizedek and the trust-breeding religion of Salem shine forth for the blessing of mankind.

97.7.13 (1070.2) The farseeing and courageous Isaiah effectively eclipsed the nationalistic Yahweh by his sublime portraiture of the majesty and universal omnipotence of the supreme Yahweh, God of love, ruler of the universe, and affectionate Father of all mankind. Ever since those eventful days the highest God concept in the Occident has embraced universal justice, divine mercy, and eternal righteousness. In superb language and with matchless grace this great teacher portrayed the all-powerful Creator as the all-loving Father.

97.7.14 (1070.3) This prophet of the captivity preached to his people and to those of many nations as they listened by the river in Babylon. And this second Isaiah did much to counteract the many wrong and racially egoistic concepts of the mission of the promised Messiah. But in this effort he was not wholly successful. Had the priests not dedicated themselves to the work of building up a misconceived nationalism, the teachings of the two Isaiahs would have prepared the way for the

recognition and reception of the promised Messiah.

제 8 장. 신성한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

히브리인들의 체험에 관한 역사를 신성한 역사로 보고 세계의 나머지 다른 활동행위들을 세속적인 역사로 보려는 관습이,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혼돈의 대부분을 일으킨 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유대인들의 세속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었던 사제들이 구약 성서에 묘사된 것처럼 하느님이 히브리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기록을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역사인 것처럼 준비를 마친 이후에, 그들은 히브리의 관련사들과 관련되는 존재하는 기록들—“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유대 왕들의 행적”들과 같은 책들, 그리고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다소 정확한 다른 기록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시켰다.

세속적인 역사에 대한 지독한 압력과 피할 수 없는 강압이 어떻게 해서 포로 되고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을 그토록 심하게 위협하여 자기들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시 기록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였는지를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국가적 체험의 기록을 간단히 조사해 보아야만 하겠다. 유대인들이 삶에서의 적절한 비(非)신학적 철학을 진화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응징이 따르고 정의에 대해서는 신성한 보상이 따른다는 자신들의 기원적인 개념과 이집트의 개념으로 고집하고 있었다. 욕의 이야기는 이러한 잘못된 철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다. 전도서의 노골적인 염세주의는 섭리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적 신념에 대한 하나의 세속적인 현명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통치자들 밑에서 500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것은 끈기 있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선지자들과 사제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실한 유대인이 성서들을 조사하였고, 그의 혼돈은 더욱 심각하게 당황하게 되었다. 어떤 옛 선지자는 하느님이 자신의 “선민”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인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신명기를 기록한 서기관은 중대한 선택—선과 악,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을 묘사하였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자한 임금이신-구원자를 설교하였다. 예레미야는 내적인 정의—가슴 판에 새겨진 계약—의 시대를 선포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희생제물과 대속에 의한 구원에 대해 말하였다. 에스겔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한 해방을 전파하였고, 에스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노예가 되어 있었고, 해

8. SACRED AND PROFANE HISTORY

97:8.1 (1070.4) The custom of looking upon the record of the experiences of the Hebrews as sacred history and upon the transactions of the rest of the world as profane history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confusion existing in the human mind as to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this difficulty arises because there is no secular history of the Jews. After the priests of the Babylonian exile had prepared their new record of God's supposedly miraculous dealings with the Hebrews, the sacred history of Israel as portrayed in the Old Testament, they carefully and completely destroyed the existing records of Hebrew affairs — such books as “The Doings of the Kings of Israel” and “The Doings of the Kings of Judah,” together with several other more or less accurate records of Hebrew history.

97:8.2 (1070.5)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devastating pressure and the inescapable coercion of secular history so terrorized the captive and alien-ruled Jews that they attempted the complete rewriting and recasting of their history, we should briefly survey the record of their perplexing national experience. It must be remembered that the Jews failed to evolve an adequate nontheologic philosophy of life. They struggled with their original and Egyptian concept of divine rewards for righteousness coupled with dire punishments for sin. The drama of Job was something of a protest against this erroneous philosophy. The frank pessimism of Ecclesiastes was a worldly wise reaction to these overoptimistic beliefs in Providence.

97:8.3 (1071.1) But five hundred years of the overlordship of alien rulers was too much for even the patient and long-suffering Jews. The prophets and priests began to cry: “How long, O Lord, how long?” As the honest Jew searched the Scriptures, his confusion became worse confounded. An olden seer promised that God would protect and deliver his “chosen people.” Amos had threatened that God would abandon Israel unless they re-established their standards of national righteousness. The scribe of Deuteronomy had portrayed the Great Choice — as between the good and the evil, the blessing and the curse. Isaiah the first had preached a beneficent king-deliverer. Jeremiah had proclaimed an era of inner righteousness — the covenant written on the tablets of the heart. The second Isaiah talked about salvation by sacrifice and redemption. Ezekiel proclaimed deliverance through the service of devotion, and Ezra promised prosperity by adherence to the law. But

방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 다니엘이 임박한 “위기”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영속하는 정의의 통치시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훌륭한 모습과 즉각적인 건설의 엄습—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잘못된 희망이 그토록 심각한 인종적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유대인 영도자들은 너무나 혼돈을 일으킨 나머지 신성한 파라다이스의 아들이 마침내 필사자 모습—사람의 아들로써 육신화 하여 그들에게 도래하였을 때 그의 임무와 사명활동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다.

현대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 역사의 특정한 신(新)시대들에 대해 초자연적인 해석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실책을 저질러 왔다. 하느님께서 인간적 관련자들의 흐름 속으로 신(神)의 뜻에 의해 개입하는 아버지의 손을 여러 차례 밀어 넣으시기는 하셨지만, 신학적인 독단론과 종교적 미신을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 이루어진 기적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침전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속적인 역사를 소위 신성시되는 역사로 바꾸지는 않는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과 후대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선의의 뜻으로 유대인 선지자들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히브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렇게 히브리 역사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모두에 의해서 참사를 일으킬 정도로 이용 당하였다. 세속적인 히브리 역사는 철저하게 독단화 되었다. 그것은 신성한 역사의 지어낸 이야기로 바뀌었고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도덕적 개념들과 종교적 교훈들과 떼어낼 수 없을만큼 묶이게 되었다.

히브리 역사에서 중대한 시점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은, 유대인 사제들이 바빌로니아에서 그들 민족의 일상적인 세속의 역사를 지어낸 이야기이자 신성한 역사로 것처럼 돌려놓으려고, 기록되어진 사실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제 9 장.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 족속은 12개의 부족이 된 적이 없었다.—팔레스타인에 정착한 부족은 셋 또는 넷에 불과하였다. 히브리 국가는 소위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나안-사람들이 연합한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나안-사람들 속에서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기들의 딸들을 가나안-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아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한 사제들의 기록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서슴없이 주장하였다.

in spite of all this they lingered on in bondage, and deliverance was deferred. Then Daniel presented the drama of the impending “crisis” — the smiting of the great image and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the everlasting reign of righteousness, the Messianic kingdom.

97:8.4 (1071.2) And all of this false hope led to such a degree of racial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that the leaders of the Jews were so confused they failed to recognize and accept the mission and ministry of a divine Son of Paradise when he presently came to them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 incarnated as the Son of Man.

97:8.5 (1071.3) All modern religions have seriously blundered in the attempt to put a miraculous interpretation on certain epochs of human history. While it is true that God has many times thrust a Father's hand of providential intervention into the stream of human affairs, it is a mistake to regard theologic dogmas and religious superstition as a supernatural sedimentation appearing by miraculous action in this stream of human history. The fact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does not convert secular history into so-called sacred history.

97:8.6 (1071.4) New Testament authors and later Christian writers further complicated the distortion of Hebrew history by their well-meant attempts to transcendentalize the Jewish prophets. Thus has Hebrew history been disastrously exploited by both Jewish and Christian writers. Secular Hebrew history has been thoroughly dogmatized. It has been converted into a fiction of sacred history and has become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 moral concepts and religious teachings of the so-called Christian nations.

97:8.7 (1071.5) A brief recital of the high points in Hebrew history will illustrate how the facts of the record were so altered in Babylon by the Jewish priests as to turn the everyday secular history of their people into a fictitious and sacred history.

9. HEBREW HISTORY

97:9.1 (1071.6) There never were twelve tribes of the Israelites — only three or four tribes settled in Palestine. The Hebrew nation came into being as the result of the union of the so-called Israelites and the Canaanites. “And the children of Israel dwelt among the Canaanites. And they took their daughters to be their wives and gave their daughters to the sons of the Canaanites.” The Hebrews never drove the Canaanites out of Palestine, notwithstanding that the priests' record of these things unhesitatingly declared that they did.

이스라엘인의 의식(意識)은 에브라임이라는 고산지대에서 기원되었다; 후대의 유대인 의식은 유다라는 남부의 씨족에서 유래되었다. 유대인(유다 사람들)은 항상 북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록을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였다.

거짓된 히브리 역사는 암몬-사람들이 자기 부족들—길르앗-사람들-요단의 동쪽—을 침공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부의 씨족들을 사울이 소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3,000명 정도의 군사로 적을 무찔렀으며, 이 공로로 그는 고산지 부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유배된 사제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울의 무리를 330,000명으로 부풀렸고 “유다” 족속도 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덧붙였다.

암몬-사람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은 자기 군사들에 의해 대중적인 방법의 선거로 왕이 되었다. 어떤 사제나 선지자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제들은 나중에 사울이 신성한 지도에 따라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기록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유대 나라 왕위를 “거룩한 혈통”으로 세우려는 의도에서였다.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심한 왜곡은 다윗에 관한 것이었다. 사울이 암몬-사람들을 무찌른 이후에 (그는 야훼에게로 공을 돌렸음) 필리스틴 사람들은 무장을 하게 되었고 북부 지방의 씨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다윗과 사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었다. 다윗과 600인은 필리스틴 동맹에 가입하였고 에스드렐론 해안선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가드에 이르자 필리스틴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그가 사울에게 동조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다윗은 물러났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공격하여 사울을 격퇴시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였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의 무리는 여러 나라의 반항자로 잡다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의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었다.

사울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의해 길보아에서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야훼는 주변의 가나안-사람들의 눈에 하느님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하느님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대개, 사울의 패배는 야훼가 변심한 탓으로 돌려질 수도 있었지만, 이 때 유다 민족 편집자들은 그것을 예식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 사울과 사무엘의 전통을 하나의 배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적은 숫자의 무리를 가진 다윗은 히브리 성읍이 아닌 헤브론에 자기 근거지를 두었다. 이윽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유다의 새 왕국의 왕으로 선포하였다. 유다는 대개 히브리인이 아닌 족속들—켄-사람, 갈렙-사람, 여부스-사람, 그리고 다른 가나안-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방랑자들—목축업자들—이었으며 그래서 땅의 소유권에 대한 히브리 관념에 헌신하였다. 그들은 사막의

97:9.2 (1071.7) The Israelitish consciousness took origin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he later Jewish consciousness originated in the southern clan of Judah. The Jews (Judahites) always sought to defame and blacken the record of the northern Israelites (Ephraimites).

97:9.3 (1072.1) Pretentious Hebrew history begins with Saul's rallying the northern clans to withstand an attack by the Ammonites upon their fellow tribesmen — the Gileadites — east of the Jordan. With an army of a little more than three thousand he defeated the enemy, and it was this exploit that led the hill tribes to make him king. When the exiled priests rewrote this story, they raised Saul's army to 330,000 and added “Judah” to the list of tribes participating in the battle.

97:9.4 (1072.2) Immediately following the defeat of the Ammonites, Saul was made king by popular election by his troops. No priest or prophet participated in this affair. But the priests later on put it in the record that Saul was crowned king by the prophet Samuel in accordance with divine directions. This they did in order to establish a “divine line of descent” for David's Judahite kingship.

97:9.5 (1072.3) The greatest of all distortions of Jewish history had to do with David. After Saul's victory over the Ammonites (which he ascribed to Yahweh) the Philistines became alarmed and began attacks on the northern clans. David and Saul never could agree. David with six hundred men entered into a Philistine alliance and marched up the coast to Esdraelon. At Gath the Philistines ordered David off the field; they feared he might go over to Saul. David retired; the Philistines attacked and defeated Saul. They could not have done this had David been loyal to Israel. David's army was a polyglot assortment of malcontents, being for the most part made up of social misfits and fugitives from justice.

97:9.6 (1072.4) Saul's tragic defeat at Gilboa by the Philistines brought Yahweh to a low point among the gods in the eyes of the surrounding Canaanites. Ordinarily, Saul's defeat would have been ascribed to apostasy from Yahweh, but this time the Judahite editors attributed it to ritual errors. They required the tradition of Saul and Samuel as a background for the kingship of David.

97:9.7 (1072.5) David with his small army made his headquarters at the non-Hebrew city of Hebron. Presently his compatriots proclaimed him king of the new kingdom of Judah. Judah was made up mostly of non-Hebrew elements — Kenites, Calebites, Jebusites, and other Canaanites. They were nomads — herders — and so were devoted to the Hebrew idea of land ownership. They held

씨족들이 갖는 관념을 지지하였다.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적인 역사 사이의 차이 점은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다윗 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서로 다른 두 이야기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직계 추종자들(그의 군대)이 어떻게 그를 왕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세속 이야기의 일부가, 나중에 성스러운 역사에 관하여 길고도 지루한 설명을 준비했던 사제들의 부주의로 기록에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신성한 지도에 의해 어떻게 다윗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했고 공식적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정교하고도 엄숙한 예식에 따라서 그를 히브리인들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그런 다음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선포한 일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다.

아주 여러 번 사제들은, 이스라엘과의 하느님의 기적같은 거래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미 기록에 들어 있는 평범하고도 사실적-일들에 대한 언급들을 충분하게 삭제하는 데에 실패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에돔-사람이며 부자인 나발의 과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쉬르 왕인 달매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히타이트-사람의 아내인 밋세바 말고도 여부스-사람에서 여섯 명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민족으로부터 다윗은 에브라임-사람의 이스라엘 왕국, 사라지는 북부의 왕국의 유산과 전통의 후계자로서 유다라는 신성한 왕국에 대한 허구를 꾸며냈다. 다윗이 거느린 유다라는 다국적 부족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방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한 에브라임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 군사적인 협박을 가한 후에, 다윗은 여부스-시립들과 조약을 맺었고 연합된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곳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매우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읍이었다. 필리스틴-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곧 다윗을 공격하였다. 격심한 전투가 있은 후에 그들은 패배하였고, 야훼는 다시 한 번 “만군의 주 하느님”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다윗 무리 대부분이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훼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사람 하느님들과 영광의 일부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보는 기록에 (유다의 편집자들이 간과하였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야훼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방의 이름을 바알-페라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 군사의 80퍼센트가 바알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에서 패배한 이유가 가나안-사람의 성읍인, 기브온, 에브라임-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곳을 사울이 공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 때문에 야훼가 그를 버

the ideologies of the desert clans.

97:9.8 (1072.6) The difference between sacred and profane history is well illustrated by the two differing stories concerning making David king as they are found in the Old Testament. A part of the secular story of how his immediate followers (his army) made him king was inadvertently left in the record by the priests who subsequently prepared the lengthy and prosaic account of the sacred history wherein is depicted how the prophet Samuel, by divine direction, selected David from among his brethren and proceeded formally and by elaborate and solemn ceremonies to anoint him king over the Hebrews and then to proclaim him Saul's successor.

97:9.9 (1072.6) So many times did the priests, after preparing their fictitious narratives of God's miraculous dealings with Israel, fail fully to delete the plain and matter-of-fact statements which already rested in the records.

97:9.10 (1072.7) David sought to build himself up politically by first marrying Saul's daughter, then the widow of Nabal the rich Edomite, and then the daughter of Talmi, the king of Geshur. He took six wives from the women of Jebus, not to mention Bathsheba, the wife of the Hittite.

97:9.11 (1073.1) And it was by such methods and out of such people that David built up the fiction of a divine kingdom of Judah as the successor of the heritage and traditions of the vanishing northern kingdom of Ephraimite Israel. David's cosmopolitan tribe of Judah was more gentile than Jewish; nevertheless the oppressed elders of Ephraim came down and “anointed him king of Israel.” After a military threat, David then made a compact with the Jebusites and established his capital of the united kingdom at Jebus (Jerusalem), which was a strong-walled city midway between Judah and Israel. The Philistines were aroused and soon attacked David. After a fierce battle they were defeated, and once more Yahweh was established as “The Lord God of Hosts.”

97:9.12 (1073.2) But Yahweh must, perforce, share some of this glory with the Canaanite gods, for the bulk of David's army was non-Hebrew. And so there appears in your record (overlooked by the Judahite editors) this telltale statement: “Yahweh has broken my enemies before me. Therefore he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Baal-Perazim.” And they did this because eighty per cent of David's soldiers were Baalites.

97:9.13 (1073.3) David explained Saul's defeat at Gilboa by pointing out that Saul had attacked a Canaanite city, Gibeon, whose people had a peace treaty with the Ephraimites. Because of

렀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사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다윗은 필리스틴-사람들에 대항하여 길르앗이라는 가나안-사람의 성읍을 방어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수도를 가나안-사람의 성읍에 세웠다. 다윗은 가나안-사람들과 타협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들 일곱 명을 기브온-사람들에게 내주어 목을 매달게 하였다.

필리스틴-사람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야훼의 법궤”를 손에 넣게 되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자기 왕국의 공식적인 경배로 야훼를 섬기게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이웃 부족들—에돔-사람, 모압-사람, 암몬-사람 그리고 시리아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윗의 부패한 정치적 기능구조는 히브리 사회관례와는 반대로 북쪽에 있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는 전에 필리스틴-사람들에 의해 거둬들여졌던 카라반 관세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그 포악성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법 소송들은 예루살렘에서 판결되었는데; “장로들”은 더 이상 공의를 행사할 수 없었다. 폭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압살롬은 선동가로 불릴 수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사람이었다. 밋세바의 아들—솔로몬—외에도 왕위를 노리는 아들이 여섯 명이 있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북부의 영향을 받은 모든 정치 조직을 제거하였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의 전체정치와 정세 제도는 모두 계속하였다. 솔로몬은 사치스러운 왕실 유지와 자신이 면밀하게 계획한 건축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그 중에는 레바논에 있는 집, 파라오의 딸의 궁전, 야훼의 성전, 왕의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들의 성벽 재건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거대한 규모의 히브리 해군을 창설하여, 시리아 선원들로 하여금 운항하도록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였다. 그의 후궁들은 거의 1,000명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실로에 있던 야훼의 성전은 신용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적인 모든 경배는 여부스에 있는 호화스러운 왕궁 경배실로 집중되었다. 북왕국은 엘로힘 숭배로 더욱 기울어졌다. 그들은 파라오의 호의를 즐겼는데, 파라오들은 나중에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남 왕국에게 공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홍망성쇠가 계속되었다—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들. 4년간의 독립 전쟁과 왕조가 세 번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육상 무역을 시작한 도시 전체 군주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오므리 왕조차도 시므리가 소유한 땅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에브라임의 아합 왕은 10개의 다른 집단들을 모으고 카르카에서 저항하였다; 그 전투에서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멈추었지만 그러나 동맹군은 격감되었다. 이 큰 싸움은 구약 성서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사려 하였을 때 새로

this, Yahweh forsook him. Even in Saul's time David had defended the Canaanite city of Keilah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en he located his capital in a Canaanite city. In keeping with the policy of compromise with the Canaanites, David turned seven of Saul's descendants over to the Gibeonites to be hanged.

97:9.14 (1073.4) After the defeat of the Philistines, David gained possession of the “ark of Yahweh,” brought it to Jerusalem, and made the worship of Yahweh official for his kingdom. He next laid heavy tribute on the neighboring tribes — the Edomites, Moabites, Ammonites, and Syrians.

97:9.15 (1073.5) David's corrupt political machine began to get personal possession of land in the north in violation of the Hebrew mores and presently gained control of the caravan tariffs formerly collected by the Philistines. And then came a series of atrocities climaxed by the murder of Uriah. All judicial appeals were adjudicated at Jerusalem; no longer could “the elders” mete out justice. No wonder rebellion broke out. Today, Absalom might be called a demagogue; his mother was a Canaanite. There were a half dozen contenders for the throne besides the son of Bathsheba — Solomon.

97:9.16 (1073.6) After David's death Solomon purged the political machine of all northern influences but continued all of the tyranny and taxation of his father's regime. Solomon bankrupted the nation by his lavish court and by his elaborate building program: There was the house of Lebanon, the palace of Pharaoh's daughter, the temple of Yahweh, the king's palace, and the restoration of the walls of many cities. Solomon created a vast Hebrew navy, operated by Syrian sailors and trading with all the world. His harem numbered almost one thousand.

97:9.17 (1073.7) By this time Yahweh's temple at Shiloh was discredited, and all the worship of the nation was centered at Jebus in the gorgeous royal chapel. The northern kingdom returned more to the worship of Elohim. They enjoyed the favor of the Pharaohs, who later enslaved Judah, putting the southern kingdom under tribute.

97:9.18 (1073.8) There were ups and downs — wars between Israel and Judah. After four years of civil war and three dynasties, Israel fell under the rule of city despots who began to trade in land. Even King Omri attempted to buy Shemer's estate. But the end drew on apace when Shalmaneser III decided to control the Mediterranean coast. King Ahab of Ephraim gathered ten other groups and resisted at Karkar; the battle was a draw. The Assyrian was stopped but the allies were decimated. This great fight is not even mentioned in the Old Testament.

97:9.19 (1074.1) New trouble started when King Ahab

운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의 페니키아인 아내가 아합의 이름을 몰래 사용하여, 나봇이 “엘로힘과 왕”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의 땅을 몰수하라는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 활력이 넘치는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 나봇의 가족을 살인한 것에 대해 아합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의 하나였던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의 땅을 매매하는 태도에 대항하여, 도시들이 농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땅에 관한 옛 사회관례의 변호자로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개혁은 농촌 지주인 예후가 방랑하는 사람들의 족장인 여호나답과 힘을 합쳐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토지 중개인들)을 격퇴시킬 때까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하였을 때 새로운 삶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사마리아에서는 옛날의 다윗 왕조의 귀족 집단이 무색할 정도로 약탈하는 귀족 집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국가와 회당이 서로 결탁하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엘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로 하여금 그들의 비밀 기록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성경들의 실제적인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북 왕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의 왕과 음모를 꾸며서 아시리아에게 더 이상 공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기 전까지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3년 동안 포위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북 왕국은 전부 흩어지게 되었다. 에브라임(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 유다—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잔존자들”—은 이사야가 “집을 가진 자가 더 갖고 땅을 가진 자가 더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땅의 소유권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예루살렘에는 야훼의 성전 옆에 나란히 바알의 성전이 있게 되었다. 이 공포의 통치시대는, 야훼를 위하여 35년 동안 개혁운동을 벌인 소년 임금 요아스가 이끈 유일신교 폭동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했다.

그 다음의 왕인 아마시아는 에돔-사람들과 그 이웃들이 세금 납부를 거역하는 폭동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현저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북쪽에 있는 이웃들을 공격하였고 똑같이 현저하게 패배를 당하였다. 그러자 시골에 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왕을 암살하고 16살이 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아마시아인데, 이사야는 그를 웃시아라고 불렀다. 웃시아가 물러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유다는 아시리아의 왕들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100여 년 동안 존재했다. 첫 번째 이사야는 그들에게 야훼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함락될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였다.

유다의 실제적인 파멸은 소년 왕인 므낫세의 통치 아래에서 일한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타락과 치부로 인하여 초래되었다. 변화하는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바알 경배가 융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tried to buy land from Naboth. His Phoenician wife forged Ahab's name to papers directing that Naboth's land be confiscated on the charge that he had blasphemed the names of “Elohim and the king.” He and his sons were promptly executed. The vigorous Elijah appeared on the scene denouncing Ahab for the murder of the Naboths. Thus Elijah, one of the greatest of the prophets, began his teaching as a defender of the old land mores as against the land-selling attitude of the Baalim, against the attempt of the cities to dominate the country. But the reform did not succeed until the country landlord Jehu joined forces with the gypsy chieftain Jehonadab to destroy the prophets (real estate agents) of Baal at Samaria.

97:9.20 (1074.2) New life appeared as Jehoash and his son Jeroboam delivered Israel from its enemies. But by this time there ruled in Samaria a gangster-nobility whose depredations rivaled those of the Davidic dynasty of olden days. State and church went along hand in hand. The attempt to suppress freedom of speech led Elijah, Amos, and Hosea to begin their secret writing, and this was the real beginning of the Jewish and Christian Bibles.

97:9.21 (1074.3) But the northern kingdom did not vanish from history until the king of Israel conspired with the king of Egypt and refused to pay further tribute to Assyria. Then began the three years' siege followed by the total dispersion of the northern kingdom. Ephraim (Israel) thus vanished. Judah — the Jews, the “remnant of Israel” — had begun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the few, as Isaiah said, “Adding house to house and field to field.” Presently there was in Jerusalem a temple of Baal alongside the temple of Yahweh. This reign of terror was ended by a monotheistic revolt led by the boy king Joash, who crusaded for Yahweh for thirty-five years.

97:9.22 (1074.4) The next king, Amaziah, had trouble with the revolting tax-paying Edomites and their neighbors. After a signal victory he turned to attack his northern neighbors and was just as signally defeated. Then the rural folk revolted; they assassinated the king and put his sixteen-year-old son on the throne. This was Azariah, called Uzziah by Isaiah. After Uzziah,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and Judah existed for a hundred years by paying tribute to the kings of Assyria. Isaiah the first told them that Jerusalem, being the city of Yahweh, would never fall. But Jeremiah did not hesitate to proclaim its downfall.

97:9.23 (1074.5) The real undoing of Judah was effected by a corrupt and rich ring of politicians operating under the rule of a boy king, Manasseh. The changing economy favored the return of the

사유지 매매는 야훼의 관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시리아의 몰락과 이집트의 패권이 유다를 잠시 동안 해방하였고, 시골 세력이 우세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의 예루살렘 동맹을 격퇴시켰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네코의 강력한 무리를 가로막기 위해 요시아가 시도하였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는 철저히 실패하였고, 유다는 이집트에게 공물을 제공하는 신세가 되었다. 바알을 섬기는 정치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실제 이집트인 속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사법권과 사제 계급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알 경배는 땅의 비옥함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소유권과 관계되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였다.

느브갓네살에 의해 네코가 패배함으로써, 유다는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10년 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곧 반란을 일으켰다.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야훼를 자극시키기 위하여 노예들을 풀어주는 등, 사회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무리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개혁의 마술이 자기들을 구원하였음을 기쁨을 향유하였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 때였으며, 얼마 안 있어서 느브갓네살이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이 갑작스럽게 임하였다. 그 성읍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다. 야훼-바알 투쟁은 포로가 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유일신 론으로 변하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작은 집단으로서는 자기들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관습들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만약에 자기들의 관념이 우세하다면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운명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개념—유대인들이 야훼의 선택 받은 종들임에 틀림없다는 개념—이 기원되었다. 구약 성서의 유대 종교는 실제적으로는 포로가 되었던 바빌로니아에서 진화되었다.

불멸성에 대한 교리 역시 바빌로니아에서 형성되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공의에 대한 자기들의 복음에 대한 강조와는 동떨어진 내세의 관념을 생각해 왔었다. 이제는 처음으로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을 대치시키게 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체계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만큼, 신성한 역사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이 일상적인 세속적 역사의 기록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유대주의가 그리스도교를 발전시킨 토양이었던 것

worship of Baal, whose private land dealings were against the ideology of Yahweh. The fall of Assyria and the ascendancy of Egypt brought deliverance to Judah for a time, and the country folk took over. Under Josiah they destroyed the Jerusalem ring of corrupt politicians.

97:9.24 (1074.6) But this era came to a tragic end when Josiah presumed to go out to intercept Necho's mighty army as it moved up the coast from Egypt for the aid of Assyria against Babylon. He was wiped out, and Judah went under tribute to Egypt. The Baal political party returned to power in Jerusalem, and thus began the *real* Egyptian bondage. Then ensued a period in which the Baalim politicians controlled both the courts and the priesthood. Baal worship was an economic and social system dealing with property rights as well as having to do with soil fertility.

97:9.25 (1075.1) With the overthrow of Necho by Nebuchadnezzar, Judah fell under the rule of Babylon and was given ten years of grace, but soon rebelled. When Nebuchadnezzar came against them, the Judahites started social reforms, such as releasing slaves, to influence Yahweh. When the Babylonian army temporarily withdrew, the Hebrews rejoiced that their magic of reform had delivered them.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Jeremiah told them of the impending doom, and presently Nebuchadnezzar returned.

97:9.26 (1075.2) And so the end of Judah came suddenly. The city was destroyed, and the people were carried away into Babylon. The Yahweh-Baal struggle ended with the captivity. And the captivity shocked the remnant of Israel into monotheism.

97:9.27 (1075.3) In Babylon the Jews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y could not exist as a small group in Palestine, having their own peculiar social and economic customs, and that, if their ideologies were to prevail, they must convert the gentiles. Thus originated their new concept of destiny — the idea that the Jews must become the chosen servants of Yahweh. The Jewish religion of the Old Testament really evolved in Babylon during the captivity.

97:9.28 (1075.4) The doctrine of immortality also took form at Babylon. The Jews had thought that the idea of the future life detracted from the emphasis of their gospel of social justice. Now for the first time theology displaced sociology and economics. Religion was taking shape as a system of human thought and conduct more and more to be separated from politics, sociology, and economics.

97:9.29 (1075.5) And so does the truth about the Jewish people disclose that much which has been regarded as sacred history turns out to be little more than the chronicle of ordinary profane history.

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Judaism was the soil out of which Christianity grew, but the Jews were not a miraculous people.

제 10 장. 히브리 종교

10. THE HEBREW RELIGION

그들의 영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은혜로 특별한 자유와 독점권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하는 특별한 봉사를 받은 선택된 민족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 운명을 성취시키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모든 민족들의 영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도래할 메시야가 평화의 영주로서 그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97.10.1 (1075.6) Their leaders had taught the Israelites that they were a chosen people, not for special indulgence and monopoly of divine favor, but for the special service of carrying the truth of the one God over all to every nation. And they had promised the Jews that, if they would fulfill this destiny, they would become the spiritual leaders of all peoples, and that the coming Messiah would reign over them and all the world as the Prince of Peace.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과 희생 제사 그리고 예식에 관계된 자기들 자신의 성직자-지배 규범에 속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희생 제사와 고행에 대한 모세의 고별 연설 속에 제시되었던 하느님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를 히브리 씨족들이 거부한 것과 같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점점 확정되는 자신들의 사제 제도에 대한 규칙과 규정 그리고 예식에 대한 두 번째 이사야의 장엄한 개념을 거부하였다.

97.10.2 (1075.7) When the Jews had been freed by the Persians, they returned to Palestine only to fall into bondage to their own priest-ridden code of laws, sacrifices, and rituals. And as the Hebrew clans rejected the wonderful story of God presented in the farewell oration of Moses for the rituals of sacrifice and penance, so did these remnants of the Hebrew nation reject the magnificent concept of the second Isaiah for the rules, regulations, and rituals of their growing priesthood.

국가적 이기주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리고 사제 계급의 점점 더 심해지는 속박과 횡포로 인하여, 영적인 영도자들(다니엘, 에스겔, 학개, 말라기를 제외하고)의 외침은 언제까지나 묵살되었다; 그 시대로부터 세례자 요한의 시대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영적 퇴보를 체험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주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잃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후 20세기까지도 이 신(神) 개념을 계속 따라왔다.

97.10.3 (1075.8) National egotism, false faith in a misconceived promised Messiah, and the increasing bondage and tyranny of the priesthood forever silenced the voices of the spiritual leaders (excepting Daniel, Ezekiel, Haggai, and Malachi); and from that day to the time of John the Baptist all Israel experienced an increasing spiritual retrogression. But the Jews never lost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even to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they have continued to follow this Deity conception.

모세로부터 세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사악한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꾸짖고 상업화된 사제들을 비난하며 최극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경배를 고수하도록 그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훈계하면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유일신론의 횃불을 전해주었던 성실한 선생들의 계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갔다.

97.10.4 (1076.1) From Moses to John the Baptist there extended an unbroken line of faithful teachers who passed the monotheistic torch of light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while they unceasingly rebuked unscrupulous rulers, denounced commercializing priests, and ever exhorted the people to adhere to the worship of the supreme Yahweh, the Lord God of Israel.

한 나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잃었지만, 유일하신 우주적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히브리 종교는 흩어진 유랑민들의 가슴속에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교는 그 추종자들의 최고 가치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다. 유대인의 종교는 한 민족의 이상(理想)들을 보존하였지만, 진리의 영역들에 대한 철학적인 창조적 발굴을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유대인의 종교는 많은 결점들—철학이 부족하였고 심미적인 본질특성이 거의 없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도덕적인 가치들을 보존시켰으며; 그렇기 때문에 존속되었

97.10.5 (1076.2) As a nation the Jews eventually lost their political identity, but the Hebrew religion of sincere belief in the one and universal God continues to live in the hearts of the scattered exiles. And this religion survives because it has effectively functioned to conserve the highest values of its followers. The Jewish religion did preserve the ideals of a people, but it failed to foster progress and encourage philosophic creative discovery in the realms of truth. The Jewish religion had many faults — it was deficient in philosophy and almost devoid of aesthetic qualities — but it did conserve moral values;

다. 신(神)에 대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할 때, 최극이신 야훼는 개념이 뚜렷하고, 생생하며 개인적이고 도덕적이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의와 지혜와 진리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였지만, 이러한 신성한 본질특성들에 대한 영적인 납득과 지적인 깨달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일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히브리 신학이 확대되는 일을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두 개의 다른 세계적 종교, 그리스도교와 마호맷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유대인의 종교를 존속되게 한 것은 그 제도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가 개별존재화된 개인들의 사적(私的)인 실천 관행으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이것은 계속하여 종교 영도자들의 실수가 되어왔는데: 산업화된 종교의 악한 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기능하는 그 기법을 파괴시키려고 모색하였다. 모든 예식들을 없애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잘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에스겔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현명하였다; 비록 그가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을 저항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또한 그는 우월하고 순수한 예식에 대한 신실한 수호를 세우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그 때까지 유란시아에서 발생되었던 종교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하였는데: 그것은 미개한 정령(精靈) 야훼에 대한 야만적인 개념, 폭음을 내면서 폭발하는 시나이 산 화산의 질투심이 많고 잔인한 영 하느님이 나중에는 만유의 창조자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인 최극이신 야훼에 대한 고양되고 숭고한 개념으로 점진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 개념은, 그의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삶의 모범과 개인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절묘하게 확대되고 더욱 확대되었을 그 시대 전까지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 심상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therefore it persisted. The supreme Yahweh, as compared with other concepts of Deity, was clear-cut, vivid, personal, and moral.

97:10.6 (1076.3) The Jews loved justice, wisdom, truth, and righteousness as have few peoples, but they contributed least of all peoples to the intellectual comprehension and to the spiritual understanding of these divine qualities. Though Hebrew theology refused to expand, it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two other world religions, Christianity and Mohammedanism.

97:10.7 (1076.4) The Jewish religion persisted also because of its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for religion to survive as the private practice of isolated individuals. This has ever been the error of the religious leaders: Seeing the evils of institutionalized religion, they seek to destroy the technique of group functioning. In place of destroying all ritual, they would do better to reform it. In this respect Ezekiel was wiser than his contemporaries; though he joined with them in insisting on personal moral responsibility, he also set about to establish the faithful observance of a superior and purified ritual.

97:10.8 (1076.5) And thus the successive teachers of Israel accomplished the greatest feat in the evolution of religion ever to be effected on Urantia: the gradual but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the barbaric concept of the savage demon Yahweh, the jealous and cruel spirit god of the fulminating Sinai volcano, to the later exalted and supernal concept of the supreme Yahweh, creator of all things and the loving and merciful Father of all mankind. And this Hebraic concept of God was the highest human visualiz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up to that time when it was further enlarged and so exquisitely amplified by the personal teachings and life example of his Son, Michael of Nebadon.

97:10.9 (1076.6)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8 편 서방(西方)의 멜기세덱 가르침

⇨ 097

유랜시아 책

09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8 편 서방(西方)의 멜기세덱 가르침

색션

소개

- 제 1 장. 그리스인들 사이에서의 살렘 종교
제 2 장. 그리스의 철학적 생각
제 3 장. 로마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제 4 장. 신비 예배종파
제 5 장. 미드라 예배종파
제 6 장.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제 7 장. 그리스도교

PAPER 98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THE OCCIDEN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alem Religion among the Greeks
2. Greek Philosophic Thought
3.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Rome
4. The Mystery Cults
5. The Cult of Mithras
6. Mithraism and Christianity
7. The Christian Religion

소개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갔지만, 그것들은 주로 이집트를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속속들이 헬라화 된 후에 그리고 후대에는 그리스도교화 된 후에 서방의 철학에 체현되었다. 서방 세계의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 방식이었고, 후대의 종교 철학은 예수의 철학이 되었는데 그것은 동방의 진화하는 철학과 종교를 접촉함으로써 변화되고 절충된 상태였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이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였고, 주기적으로 일어난 많은 예배종파들과 예식적 집단들 속에 점차적으로 흡수되었다. 살렘의 가르침을 순수한 형태로 간직한 사람들 중에 건유학파는 반드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이후 1세기에 로마화된 유럽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새롭게 형성되는 그리스도교에 합병되었다.

살렘 교리의 대부분은 수많은 서방의 군사적 투쟁들을 위해 싸운 유대인 용병들에 의해서 유럽에 퍼졌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용맹스러운 군인이

INTRODUCTION

98:0.1 (1077.1) THE Melchizedek teachings entered Europe along many routes, but chiefly they came by way of Egypt and were embodied in Occidental philosophy after being thoroughly Hellenized and later Christianized. The ideals of the Western world were basically Socratic, and its later religious philosophy became that of Jesus as it was modified and compromised through contact with evolving Occidental philosophy and religion, all of which culminated in the Christian church.

98:0.2 (1077.2) For a long time in Europe the Salem missionaries carried on their activities, becoming gradually absorbed into many of the cults and ritual groups which periodically arose. Among those who maintained the Salem teachings in the purest form must be mentioned the Cynics. These preachers of faith and trust in God were still functioning in Roman Europe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being later incorporated into the newly forming Christian religion.

98:0.3 (1077.3) Much of the Salem doctrine was spread in Europe by the Jewish mercenary soldiers who fought in so many of the Occidental

로 유명했던 만큼 신학적인 독특성으로도 유명하였다.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유대인의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초기의 헬기세텍 가르침이 반향된 것이었다.

제 1 장. 그리스인들 사이에서의 살렘 종교

살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임명에 대한 맹세, 경배에 대한 배타적 회중(會衆)을 조직하지 말라고 금한 것과, 선생들 각자가 일종의 사제 역할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양식과 의복 그리고 거처할 장소만을 받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던 마키벤타에 의해 부과되었던 서약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위대한 종교 체제를 세웠을 것이다. 헬기세텍 선생들이 헬라화-이전의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담아들과 안드-사람 시대의 전승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어떤 민족을 발견하였지만, 이 가르침들은 그리스 해안에 점점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났던 열등한 유목민 노예들의 관념과 신앙으로 크게 오염되게 되었다. 이불순물은 피 흘리는 예식과 함께 조잡한 정령 숭배로의 퇴보를 낳았고, 하층 등급의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집행을 예식으로 삼기까지 하였다.

살렘 선생들의 초기 영향력은, 소위 남부 유럽 그리고 동방으로부터의 아리아인 침략에 의해 거의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헬라의 이 침입자들은 그들의 아리아인 동족들이 인도로 가져갔던 것들과 유사한 사람모습의-신(神)으로의 하느님 개념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유입으로 말미암아, 남성하느님들과 여성하느님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하느님 체제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이 종교는 부분적으로는 유입되는 헬라의 야만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종파에 기초를 두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리스의 옛 주민들의 신화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헬라화 된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이 주로 어머니 예배종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남성-하느님, 단일신교를 숭배하는 셈족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진 야훼처럼, 종속적인 여러 하느님들을 섬기는 그리스 만신(萬神)의 우두머리인 디아우스-제우스를 믿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숙명의 여신의 전반적-통제를 보류한 것 외에는 제우스의 개념 속에서 결국에는 참된 유일신 론을 성취할 수 있었다. 최종적인 가치관의 하느님 그 자신이 숙명의 결정자이며 운명의 창조자가 되어야만 한다.

종교적인 진화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의 결과로, 마침내 신성이기보다는 인간적인 하느님들

military struggles. In ancient times the Jews were famed as much for military valor as for theologic peculiarities.

98:0.4 (1077.4) The basic doctrines of Greek philosophy, Jewish theology, and Christian ethics were fundamentally repercussions of the earlier Melchizedek teachings.

1. THE SALEM RELIGION AMONG THE GREEKS

98:1.1 (1077.5) The Salem missionaries might have built up a great religious structure among the Greeks had it not been for their strict interpretation of their oath of ordination, a pledge imposed by Machiventa which forbade the organization of exclusive congregations for worship, and which exacted the promise of each teacher never to function as a priest, never to receive fees for religious service, only food, clothing, and shelter. When the Melchizedek teachers penetrated to pre-Hellenic Greece, they found a people who still fostered the traditions of Adamson and the days of the Andites, but these teachings had become greatly adulterated with the notions and beliefs of the hordes of inferior slaves that had been brought to the Greek shores in increasing numbers. This adulteration produced a reversion to a crude animism with bloody rites, the lower classes even making ceremonial out of the execution of condemned criminals.

98:1.2 (1077.6) The early influence of the Salem teachers was nearly destroyed by the so-called Aryan invasion from southern Europe and the East. These Hellenic invaders brought along with them anthropomorphic God concepts similar to those which their Aryan fellows had carried to India. This importation inaugurated the evolution of the Greek family of gods and goddesses. This new religion was partly based on the cults of the incoming Hellenic barbarians, but it also shared in the myths of the older inhabitants of Greece.

98:1.3 (1078.1) The Hellenic Greeks found the Mediterranean world largely dominated by the mother cult, and they imposed upon these peoples their man-god, Dyaus-Zeus, who had already become, like Yahweh among the henotheistic Semites, head of the whole Greek pantheon of subordinate gods. And the Greeks would have eventually achieved a true monotheism in the concept of Zeus except for their retention of the overcontrol of Fate. A God of final value must, himself, be the arbiter of fate and the creator of destiny.

98:1.4 (1078.2) As a consequence of these factors in religious evolution, there presently developed the

이며, 지적인 그리스 사람들이 한 번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하느님들인, 올림퍼스 산의 낙천적인 하느님들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신성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다. 그들은 제우스 하느님을 비롯하여 반신반인인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애국적이고 종족적인 느낌을 가졌지만, 그들을 존경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헬라 사람들은 성직자 세력에 반대하는 초기 살렘 선생들의 교리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어떤 유력한 사제 제도도 세워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하느님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도 경배에서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일이 되었다.

올림피아의 하느님들은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모습의-신(神) 사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화는 윤리적이기보다는 미학적이었다. 그리스의 종교는 신(神) 집단에 의해 우주가 지배된다는 것을 묘사하는 데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마침내 그 하느님 개념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으며, 지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그것이 인도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게 모험적인 것이었다.

제 2 장. 그리스의 철학적 생각

소홀히 여겨지고 피상적인 종교는 지속될 수 없는데, 특별히 그것이 그 형태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가슴을 채워주는 사제 무리들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올림피아의 그 종교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하였다; 그 결과로 그것은 소멸될 처지에 처해 있었다. 그것은 생긴 이후 1,000년 만에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국가적인 종교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올림퍼스의 하느님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 동안 동방과 레반트 지역이 영적(靈的) 의식의 회복과 유일신 론을 깨닫는 새로운 각성을 체험하던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였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북부 아프리카도 종교적인 부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에 반하여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지적(知的)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었고 그러자 종교를 그에 대한 해독제로 더 이상 찾아 나서지 않았고, 더구나 혼(魂)적 배고픔과 영적 불안감 그리고 도덕적 절망감에 대한 치료제가 바로 참된 종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들은—철학과 형이상학—깊은 사고(思考)를 함으로써 혼적인 위로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아-보존—구원—에 대한 깊은 사색을 버리고 자아-실현과 자아-납득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popular belief in the happy-go-lucky gods of Mount Olympus, gods more human than divine, and gods which the intelligent Greeks never did regard very seriously. They neither greatly loved nor greatly feared these divinities of their own creation. They had a patriotic and racial feeling for Zeus and his family of half men and half gods, but they hardly revered or worshiped them.

98:1.5 (1078.3) The Hellenes became so impregnated with the antipriestcraft doctrines of the earlier Salem teachers that no priesthood of any importance ever arose in Greece. Even the making of images to the gods became more of a work in art than a matter of worship.

98:1.6 (1078.4) The Olympian gods illustrate man's typical anthropomorphism. But the Greek mythology was more aesthetic than ethic. The Greek religion was helpful in that it portrayed a universe governed by a deity group. But Greek morals, ethics, and philosophy presently advanced far beyond the god concept, and this imbalance between intellectual and spiritual growth was as hazardous to Greece as it had proved to be in India.

2. GREEK PHILOSOPHIC THOUGHT

98:2.1 (1078.5) A lightly regarded and superficial religion cannot endure, especially when it has no priesthood to foster its forms and to fill the hearts of the devotees with fear and awe. The Olympian religion did not promise salvation, nor did it quench the spiritual thirst of its believers; therefore was it doomed to perish. Within a millennium of its inception it had nearly vanished, and the Greeks were without a national religion, the gods of Olympus having lost their hold upon the better minds.

98:2.2 (1078.6) This was the situation when, during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he Orient and the Levant experienced a revival of spiritual consciousness and a new awakening to the recognition of monotheism. But the West did not share in this new development; neither Europe nor northern Africa extensively participated in this religious renaissance. The Greeks, however, did engage in a magnificent intellectual advancement. They had begun to master fear and no longer sought religion as an antidote therefor, but they did not perceive that true religion is the cure for soul hunger, spiritual disquiet, and moral despair. They sought for the solace of the soul in deep thinking — philosophy and metaphysics. They turned from the contemplation of self-preservation — salvation — to self-realization and self-understanding.

그리스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믿음을 대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충 의식(意識)을 엄밀한 생각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헬라화 된 민족들의 상류 등급 중에서도 매우 지적인 사람들만이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전 세대들의 노예들의 후손인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대용품을 받아들일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철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경배를 경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그들도 모두 살렘 교리에 대한 믿음의 배경에 미약하게나마 물들어 있었는데, 그 교리는 “우주의 지능”과 “하느님에 대한 관념” 그리고 “위대한 근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성한 존재들과 초(超)유한 존재들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유일신을 믿었다; 올림피아의 남성 하느님들과 여성 하느님들 전체 무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다.

5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 시인들, 특히 핀다로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 종교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그것의 이상들을 증진시키기는 하였지만, 종교가들이라기보다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최극의 가치들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기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크세노파네스는 한 분 하느님을 가르쳤지만, 그의 신(神) 개념은 너무 범신적이어서 필사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최초의 마음인 첫째원인을 이해한 것을 제외한다면 하나의 기계론자에 불과하였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들인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이 지식이다; 선함이 건강한 혼이라고 가르쳤다; 불공정을 저지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것을 고통받고 당하는 것이 낫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쳤고, 하느님들은 현명하고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덕행은: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공의였다.

헬라와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서의 종교 철학의 진화는 문화적 진보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관으로 교회의 기능에 대한 대조적인 실례를 제공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사제에 의해 통제되고 경전에 지도되었기 때문에 철학과 미학은 전반적으로 종교와 도덕 속에 감추어졌다. 그리스에서는, 사제들과 “신성한 경전들”이 거의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이 자유롭고 속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로 생각의 깊이에 있어서 놀랄만한 발전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조화우주의 자연본성과 실체를 추구하는 지적 탐구와 보조를 맞추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믿음이 사고보다 열등하였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사고가 믿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장점들 대부분은 그것이 히브리인의 도덕성과 그리스인의 생각 둘 모두로부터 매우 많은 것들을 빌려 온 것에 기인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종교적 독단론이 너무 정

98:2.3 (1078.7) By rigorous thought the Greeks attempted to attain that consciousness of security which would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belief in survival, but they utterly failed. Only the more intelligent among the higher classes of the Hellenic peoples could grasp this new teaching; the rank and file of the progeny of the slaves of former generations had no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this new substitute for religion.

98:2.4 (1079.1) The philosophers disdained all forms of worship, notwithstanding that they practically all held loosely to the background of a belief in the Salem doctrine of “the Intelligence of the universe,” “the idea of God,” and “the Great Source.” In so far as the Greek philosophers gave recognition to the divine and the superfinite, they were frankly monotheistic; they gave scant recognition to the whole galaxy of Olympian gods and goddesses.

98:2.5 (1079.2) The Greek poets of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notably Pindar, attempted the reformation of Greek religion. They elevated its ideals, but they were more artists than religionists. They failed to develop a technique for fostering and conserving supreme values.

98:2.6 (1079.3) Xenophanes taught one God, but his deity concept was too pantheistic to be a personal Father to mortal man. Anaxagoras was a mechanist except that he did recognize a First Cause, an Initial Mind. Socrates and his successors, Plato and Aristotle, taught that virtue is knowledge; goodness, health of the soul; that it is better to suffer injustice than to be guilty of it, that it is wrong to return evil for evil, and that the gods are wise and good. Their cardinal virtues were: wisdom, courage, temperance, and justice.

98:2.7 (1079.4) The evolution of religious philosophy among the Hellenic and Hebrew peoples affords a contrastive illustration of the function of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in the shaping of cultural progress. In Palestine, human thought was so priest-controlled and scripture-directed that philosophy and aesthetics were entirely submerged in religion and morality. In Greece, the almost complete absence of priests and “sacred scriptures” left the human mind free and unfettered, resulting in a startling development in depth of thought. But religion as a personal experience failed to keep pace with the intellectual probings into the nature and reality of the cosmos.

98:2.8 (1079.5) In Greece, believing was subordinated to thinking; in Palestine, thinking was held subject to believing. Much of the strength of Christianity is due to its having borrowed heavily from both Hebrew morality and Greek thought.

98:2.9 (1079.6) In Palestine, religious dogma became

형화되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추상화되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자기 분석을 통해 범신주의적 사색으로 변하는 안개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브라만 철학자들의 미(未)개인적 무한한 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자아-실현과 추상적인 신(神)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개인적인 하느님과 함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갈망하였다. 그들은 철학자들을 추방시켰고, 살렘 예배종파의 잔재들, 혼합된 두 교리들 모두를 박해하였으며,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몹시 문란하게 빠져들어 갈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다. 엘류시스의 신비교들이 올림피아의 판테온, 비옥함에 대한 경배의 그리스 식 형태 속에서 자라났으며; 디오니소스의 자연 경배가 범람하였고; 그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올림픽 형제단이었는데, 그들의 도덕적인 훈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전체 그리스 사람들이 구원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들, 이들 감정적이고 열렬한 예식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떤 나라도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술적 철학에서의 그러한 높이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실천적으로 신(神)과 관련 없이 그리고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러한 진보된 윤리 체계를 창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다른 민족도 한 번도, 바로 이들 그리스 사람들이 신비 예배종파들의 미친 듯한 소용돌이 속에 자신들을 던지면서, 그렇게 빨리 지적 침체, 도덕적 타락 그리고 영적 빈곤에서의 그러한 깊은 수렁에 그토록 깊이 그리고 그토록 세차게 빠진 적이 없었다.

종교들은 철학적 지원 없이도 오랫동안 견디어 왔지만, 철학들은 종교와 어떤 정체화구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된 것이 거의 없어 왔다. 철학이 종교에 대한 관계는 개념이 행동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상적인 인간 상태는, 철학, 종교, 과학이 지혜, 신앙, 체험의 공동체를 이루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의미넘치는 합일체로 융접되어있는 그러한 것에 있다.

제 3 장. 로마에서의 멜기세덱 가르침

가정(家庭) 하느님들을 경배하는 초기 종교 형태들로부터 전쟁의 하느님인 마르스에 대한 부족적 존경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라틴 지역의 후대 종교가 그리스 그리고 브라만의 지적인 체계들 또는 몇몇 다른 민족들의 더욱 영적인 종교들보다 정치적 계율이 더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멜기세덱의 복음인

so crystallized as to jeopardize further growth; in Greece, human thought became so abstract that the concept of God resolved itself into a misty vapor of pantheistic speculation not at all unlike the impersonal infinity of the Brahman philosophers.

98:2.10 (1079.7) But the average men of these times could not grasp, nor were they much interested in, the Greek philosophy of self-realization and an abstract Deity; they rather craved promises of salvation, coupled with a personal God who could hear their prayers. They exiled the philosophers, persecuted the remnants of the Salem cult, both doctrines having become much blended, and made ready for that terrible orgiastic plunge into the follies of the mystery cults which were then overspreading the Mediterranean lands. The Eleusinian mysteries grew up within the Olympian pantheon, a Greek version of the worship of fertility; Dionysus nature worship flourished; the best of the cults was the Orphic brotherhood, whose moral preachments and promises of salvation made a great appeal to many.

98:2.11 (1080.1) All Greece became involved in these new methods of attaining salvation, these emotional and fiery ceremonials. No nation ever attained such heights of artistic philosophy in so short a time; none ever created such an advanced system of ethics practically without Deity and entirely devoid of the promise of human salvation; no nation ever plunged so quickly, deeply, and violently into such depths of intellectual stagnation, moral depravity, and spiritual poverty as these same Greek peoples when they flung themselves into the mad whirl of the mystery cults.

98:2.12 (1080.2) Religions have long endured without philosophical support, but few philosophies, as such, have long persisted without some identification with religion. Philosophy is to religion as conception is to action. But the ideal human estate is that in which philosophy, religion, and science are welded into a meaningful unity by the conjoined action of wisdom, faith, and experience.

3. THE MELCHIZEDEK TEACHINGS IN ROME

98:3.1 (1080.3) Having grown out of the earlier religious forms of worship of the family gods into the tribal reverence for Mars, the god of war, it was natural that the later religion of the Latins was more of a political observance than were the intellectual systems of the Greeks and Brahmans or the more spiritual religions of several other peoples.

98:3.2 (1080.4) In the great monotheistic renaissance

유일신 론이 크게 부흥됨에 있어서, 너무 적은 숫자의 살렘 선교사들이 이태리로 들어갔으므로, 그들로서는 그 새로운 하느님들과 신전들의 화려한 집단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는 에트루리아 사제신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조직화되어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 라틴 부족들의 이 종교는 그리스인들의 것처럼 진부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것처럼 엄격하고 압제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의 대부분은 단순한 형식과 맹세 그리고 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로부터 도입된 광대한 문화적 수입품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결국에는 올림피아의 하느님들 대부분이 옮겨 심어졌고 라틴의 만신에 합병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가정에 있는 화로(火爐)—헤스티아가 그 화로의 처녀 여신이었다; 베스타는 가정을 돌보는 로마의 여신이었음—의 불을 오랫동안 경배해 왔었다. 제우스는 유피터, 아프로디테는 비너스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올림피아의 신(神)들이 전해 내려갔다.

로마 젊은이들의 종교적 입회식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엄숙하게 헌신하는 행사였다. 시민권에 대한 맹세와 허락은 실제 안에서 종교적 예식이었다. 라틴 사람들은 신전과 제단과 성소를 유지하였으며, 위기가 닥칠 때에는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영웅들의 유골을 보관하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아들들의 것을 보관하였다.

종교처럼 보이는 애국심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냉정한 형태는 붕괴될 운명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매우 지적이고 예술적인 경배 체제조차도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열정적이고 매우 감정적인 경배 체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파괴적인 이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신비교 분파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성 베드로 성당이 서있는 로마의 바로 그 자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신흥 로마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정복을 하였지만 사교(邪敎)들과 예식들과 신비적 교의들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스와 레반트 지역의 하느님 개념들에 의해서 역으로 정복당하였다. 수입된 이 예배종파들은 로마 국가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번창하였는데, 순수하게 정치적이고 시민정부적인 이유들 때문에 신비적 교의들을 파괴하고 옛날의 정치적인 종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영웅적이고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아우구스 투스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국가 종교의 사제들 중에서 한 사람은 유일하신 하느님, 모든 초자연적 존재들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신(神)에 대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살렘 선생들이 초기에 시도하였던 것들을 아우구스 투스에게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그 황제를 강하게 사로잡게 되어 그는 많은 신전들을 세웠고 아름다운 형상들로 그것들을 장식하였고, 국가적인 사제 제도를 재구성하였으며, 국교를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제

of Melchizedek's gospel during the sixth century before Christ, too few of the Salem missionaries penetrated Italy, and those who did were unable to overcome the influence of the rapidly spreading Etruscan priesthood with its new galaxy of gods and temples, all of which became organized into the Roman state religion. This religion of the Latin tribes was not trivial and venal like that of the Greeks, neither was it austere and tyrannical like that of the Hebrews; it consisted for the most part in the observance of mere forms, vows, and taboos.

98:3.3 (1080.5) Roman relig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extensive cultural importations from Greece. Eventually most of the Olympian gods were transplanted and incorporated into the Latin pantheon. The Greeks long worshiped the fire of the family hearth — Hestia was the virgin goddess of the hearth; Vesta was the Roman goddess of the home. Zeus became Jupiter; Aphrodite, Venus; and so on down through the many Olympian deities.

98:3.4 (1080.6) The religious initiation of Roman youths was the occasion of their solemn consecration to the service of the state. Oaths and admissions to citizenship were in reality religious ceremonies. The Latin peoples maintained temples, altars, and shrines and, in a crisis, would consult the oracles. They preserved the bones of heroes and later on those of the Christian saints.

98:3.5 (1080.7) This formal and unemotional form of pseudoreligious patriotism was doomed to collapse, even as the highly intellectual and artistic worship of the Greeks had gone down before the fervid and deeply emotional worship of the mystery cults. The greatest of these devastating cults was the mystery religion of the Mother of God sect, which had its headquarters, in those days, on the exact site of the present church of St. Peter's in Rome.

98:3.6 (1080.8) The emerging Roman state conquered politically but was in turn conquered by the cults, rituals, mysteries, and god concepts of Egypt, Greece, and the Levant. These imported cults continued to flourish throughout the Roman state up to the time of Augustus, who, purely for political and civic reasons, made a heroic and somewhat successful effort to destroy the mysteries and revive the older political religion.

98:3.7 (1081.1) One of the priests of the state religion told Augustus of the earlier attempts of the Salem teach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one God, a final Deity presiding over all supernatural beings; and this idea took such a firm hold on the emperor that he built many temples, stocked them well with beautiful images, reorganized the state priesthood, re-established the state religion, appointed himself acting high priest of all, and as emperor did not

로 지정하였으며, 황제로서 자기 자신이 최극자 하느님이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를 경배하는 이 새로운 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제국의 전역에서 번창하였고 신봉되었다. 그리고 인간 하느님들의 이 시대는 공인된 그 로마 예배종파가 40명 이상의 자아를-높인 인간 신(神)들을 명부에 올릴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초인간적인 다른 속성들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점점 감소하는 살렘 신자들 집단의 마지막 저항이 진지한 전도자들의 집단인 견유학과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칠고 몰상식한 종교 예식을 버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접촉함으로써 변경되고 오염되기 이전의, 멜기세덱의 복음을 체현하고 있는 경배의 형태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유학파의 주장을 거부하였으며, 개인적인 구원의 희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분전환, 흥분 그리고 오락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키는 신비주의적 교의로 빠져들어 가기를 선호하였다.

제 4 장. 신비 예배종파

그리스-로마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시적인 가족 종교와 국가 종교를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온 장엄하고 감동적인 신비주의적 예배종파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일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현재를 위한 종교적 위로와 죽음 이후의 불멸성에 대한 희망의 확신-을 갈망하였다.

세 개의 신비적 예배종파들이 가장 널리 퍼졌다:

1. 퀴벨레와 그녀의 아들 아티스에 대한 프리지아의 예배종파.
2. 오시리스와 그의 어머니 이시스에 대한 이집트의 예배종파.
3. 미드라를 죄 많은 인류의 구원자와 대속자로 경배하는 이란의 예배종파.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적 교의들은 신성한 아들(각각 아티스와 오시리스)이 이미 죽음을 체험하고 신성한 힘에 의해 부활되었다고 가르쳤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신비 상태로 올바르게 가입된 사람 그리고 신(神)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념일을 존경을 담아 축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에 의하여 그의 신성한 본성과 그의 불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프리지아의 예식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것이다; 피를 흘리는 그들의 축제는 레반트 지역의 신비적 교의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원시적

hesitate to proclaim himself the supreme god.

98:3.8 (1081.2) This new religion of Augustus worship flourished and was observed throughout the empire during his lifetime except in Palestine, the home of the Jews. And this era of the human gods continued until the official Roman cult had a roster of more than twoscore self-elevated human deities, all claiming miraculous births and other superhuman attributes.

98:3.9 (1081.3) The last stand of the dwindling band of Salem believers was made by an earnest group of preachers, the Cynics, who exhorted the Romans to abandon their wild and senseless religious rituals and return to a form of worship embodying Melchizedek's gospel as it had been modified and contaminated through contact with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But the people at large rejected the Cynics; they preferred to plunge into the rituals of the mysteries, which not only offered hopes of personal salvation but also gratified the desire for diversion, excitement, and entertainment.

4. THE MYSTERY CULTS

98:4.1 (1081.4)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Greco-Roman world, having lost their primitive family and state religions and being unable or unwilling to grasp the meaning of Greek philosophy,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spectacular and emotional mystery cults from Egypt and the Levant. The common people craved promises of salvation — religious consolation for today and assurances of hope for immortality after death.

98:4.2 (1081.5) The three mystery cults which became most popular were:

- 98:4.3 (1081.6) 1. The Phrygian cult of Cybele and her son Attis.
- 98:4.4 (1081.7) 2. The Egyptian cult of Osiris and his mother Isis.
- 98:4.5 (1081.8) 3. The Iranian cult of the worship of Mithras as the savior and redeemer of sinful mankind.

98:4.6 (1081.9) The Phrygian and Egyptian mysteries taught that the divine son (respectively Attis and Osiris) had experienced death and had been resurrected by divine power, and further that all who were properly initiated into the mystery, and who reverently celebrated the anniversary of the god's death and resurrection, would thereby become partakers of his divine nature and his immortality.

98:4.7 (1081.10) The Phrygian ceremonies were imposing but degrading; their bloody festivals indicate how degraded and primitive these

인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불길한 금요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인데, 그 날은 아티스의 자아에 부과한 죽음을 기념하는 “피의 날”이다. 아티스의 희생과 죽음을 3일 동안 축하한 후에, 그 축제는 그의 부활을 축하하며 즐기는 분위기로 바뀐다.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한 경배 예식은 프리지아 예배종파의 그것보다 더 세련되고 인상적이다. 이집트의 이 예식은 옛날의 나일 하느님, 죽었다가 살아난 하느님에 대한 전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개념은 해마다 되풀이하여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면한 상태에 있다가 봄철에 다시 회복되어 자라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기인되었다. 신성의 실현에 대한 “열광”으로 인도해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신비적 예배종파들의 광란에 가까운 예식과 떠들썩한 의식 절차는 때로는 가장 메스꺼운 것이기도 하였다.

제 5 장. 미트라 예배종파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적 교의들은 결국에는 모든 신비적 예배종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예배종파인 미트라 경배 앞에 길을 비켜주게 되었다. 미트라 예배종파는 광범위한 인간 자연본성에 호소력을 나타내었고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를 점차적으로 대체시키게 되었다. 미트라교는 레반트 지역에서 모집된 로마 군인들의 전도를 통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는데, 그곳에서 이 종교가 유행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앙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 예식은 그 전에 있었던 신비적 예배종파들보다 훨씬 개량된 것이었다.

미트라 예배종파는 이란에서 생겼으며 조로아스터 추종자들의 군사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었다. 그러나 미트라교가 로마에 전파될 무렵에는, 그것이 조로아스터의 가르침들을 대부분 흡수함으로써 이미 크게 개선된 상태에 있었다. 조로아스터의 종교가 후대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미트라 예배종파를 통해서였다.

미트라 예배종파는 위대한 바위에서 기원되고, 용맹한 공훈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화살로 꿰뚫은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한 호전적인 하느님을 묘사하였다. 홍수가 일어났고, 그로부터 한 사람이 특별히 지어진 배를 타고 도피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하늘들로 올라가기 전에 미트라가 태양-하느님과 함께 축하하였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이 태양-하느님, 솔 인빅터스는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마즈다 신(神) 개념이 퇴화된 것이었다. 미트라는 어두움의 하느님과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태양-하느님의 투사로 여겨졌다. 그리고 신화적인 신성한 황소를 살해한 보상으로, 미트라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들 사이에서 인간 종족을 위한 중재자의 신분으로 고양된 존재가 되었다.

Levantine mysteries became. The most holy day was Black Friday, the “day of blood,” commemorating the self-inflicted death of Attis. After three days of the celebration of the sacrifice and death of Attis the festival was turned to joy in honor of his resurrection.

98:4.8 (1082.1) The rituals of the worship of Isis and Osiris were more refined and impressive than were those of the Phrygian cult. This Egyptian ritual was built around the legend of the Nile god of old, a god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which concept was derived from the observation of the annually recurring stoppage of vegetation growth followed by the springtime restoration of all living plants. The frenzy of the observance of these mystery cults and the orgies of their ceremonials, which were supposed to lead up to the “enthusiasm” of the realization of divinity, were sometimes most revolting.

5. THE CULT OF MITHRAS

98:5.1 (1082.2) The Phrygian and Egyptian mysteries eventually gave way before the greatest of all the mystery cults, the worship of Mithras. The Mithraic cult made its appeal to a wide range of human nature and gradually supplanted both of its predecessors. Mithraism spread over the Roman Empire through the propagandizing of Roman legions recruited in the Levant, where this religion was the vogue, for they carried this belief wherever they went. And this new religious ritual was a great improvement over the earlier mystery cults.

98:5.2 (1082.3) The cult of Mithras arose in Iran and long persisted in its homeland despite the militant opposition of the followers of Zoroaster. But by the time Mithraism reached Rome, it had become greatly improved by the absorption of many of Zoroaster's teachings. It was chiefly through the Mithraic cult that Zoroaster's religion exerted an influence upon later appearing Christianity.

98:5.3 (1082.4) The Mithraic cult portrayed a militant god taking origin in a great rock, engaging in valiant exploits, and causing water to gush forth from a rock struck with his arrows. There was a flood from which one man escaped in a specially built boat and a last supper which Mithras celebrated with the sun-god before he ascended into the heavens. This sun-god, or Sol Invictus, was a degeneration of the Ahura-Mazda deity concept of Zoroastrianism. Mithras was conceived as the surviving champion of the sun-god in his struggle with the god of darkness. And in recognition of his slaying the mythical sacred bull, Mithras was made immortal, being exalted to the station of intercessor for the human race among the gods on high.

이 예배종파의 지지자들은 동굴 속에서 또는 다른 비밀 장소들에서 경배를 드렸고, 성가를 불렀으며, 마술의 말들을 중얼거렸고, 희생 제물로 바쳤던 동물들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 피를 마셨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경배를 드렸고 태양신의 날에는 특별한 주간 예식을 올렸으며 12월 20일인 미드라의 연중 축제일에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공들인 행사를 가졌다.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으로, 죽은 후에는 즉시 미드라의 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심판의 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머물러 있다고 믿었다. 심판의 날에는 신실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미드라가 가진 천국의 열쇠들이 파라다이스의 문들을 열 것이다; 그 후에는 미드라가 지구에 돌아옴으로써, 산자나 죽은 자나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절멸될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심판을 받기 위해 미드라 앞으로 인도된다고 가르쳤으며,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자기 무덤에서 나온 모든 죽은 자들을 미드라가 소집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악한 자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미드라와 함께 언제까지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오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였으며, 믿는 자들이 연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곱 가지의 다른 계층들이 있었다. 나중에는, 믿는 자들의 아내들과 딸들이 미드라의 신전 가까이에서 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신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여인들의 예배종파는 미드라 예식과, 아티스의 어머니인 퀴벨레에 대한 프리지아 예배종파의 예식이 혼합된 것이었다.

제 6 장.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신비적 예배종파들과 그리스도교가 도래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종교가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문명화된 곳에서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발전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주로 가족적인, 도시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제국적인 일이었다. 헬라화된 그리스 사람들은 중앙 집권화 된 경배 체제를 진화시킨 적이 없었다; 예식은 지방마다 드러졌고; 사제 계급도 없었으며 “신성한 문서”도 없었다. 로마 사람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적 제도는 보다 높은 도덕적 영적 가치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강력한 힘을 추진하는 대리자가 결여되어 있었다. 종교의 제도화가 대개 그것의 영적 본질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인 반면, 어느 정도의, 다소간의 제도적인 조직의 도움 없이 살아남는 일에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종교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서방의 종교는 회의파, 건유학과, 쾌락주의파, 금욕주의파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새로운 종교 사이의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 이후 3세기 동안, 미트라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외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98:5.4 (1082.5) The adherents of this cult worshiped in caves and other secret places, chanting hymns, mumbling magic, eating the flesh of the sacrificial animals, and drinking the blood. Three times a day they worshiped, with special weekly ceremonials on the day of the sun-god and with the most elaborate observance of all on the annual festival of Mithras, December twenty-fifth. It was believed that the partaking of the sacrament ensured eternal life, the immediate passing, after death, to the bosom of Mithras, there to tarry in bliss until the judgment day. On the judgment day the Mithraic keys of heaven would unlock the gates of Paradise for the reception of the faithful; whereupon all the unbaptized of the living and the dead would be annihilated upon the return of Mithras to earth. It was taught that, when a man died, he went before Mithras for judgment, and that at the end of the world Mithras would summon all the dead from their graves to face the last judgment. The wicked would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righteous would reign with Mithras forever.

98:5.5 (1082.6) At first it was a religion only for men, and there were seven different orders into which believers could be successively initiated. Later on, the wives and daughters of believers were admitted to the temples of the Great Mother, which adjoined the Mithraic temples. The women's cult was a mixture of Mithraic ritual and the ceremonies of the Phrygian cult of Cybele, the mother of Attis.

6. MITHRAISM AND CHRISTIANITY

98:6.1 (1083.1) Prior to the coming of the mystery cults and Christianity, personal religion hardly developed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in the civilized lands of North Africa and Europe; it was more of a family, city-state, political, and imperial affair. The Hellenic Greeks never evolved a centralized worship system; the ritual was local; they had no priesthood and no “sacred book.” Much as the Romans, their religious institutions lacked a powerful driving agency for the preservation of higher moral and spiritual values. While it is true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igion has usually detracted from its spiritual quality, it is also a fact that no religion has thus far succeeded in surviving without the aid of institutional organization of some degree, greater or lesser.

98:6.2 (1083.2) Occidental religion thus languished until the days of the Skeptics, Cynics, Epicureans, and Stoics, but most important of all, until the times of the great contest between Mithraism and Paul's new religion of Christianity.

98:6.3 (1083.3) During the third century after Christ, Mithraic and Christian churches were very similar

예식의 성격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였다. 그러한 경배 장소들 대부분은 지하에 있었고, 죄의 저주를 받은 인간 종족에게 구원을 가져온 구원자의 고난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배경이 그려진 제단들을 둘 모두 갖고 있었다.

미트라 경배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스러운 물속에 손가락들을 적시는 것이 항상 실천 관행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동시에 두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들 대부분에게 이러한 관습을 소개하였다. 두 종교들은 모두 세례를 베풀었으며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를 거행하였다. 미트라와 예수의 성격들을 제외하고,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큰 차이점 하나는, 전자는 미트라교를 장려하는 반면 후자는 극단적으로 평화를 옹호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종교들(후대의 그리스도교는 제외하고)에 대한 미트라교의 관대함은 그것이 마침내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두 종교들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여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충분한 동료관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명칭상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서방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 철학은 윤리적 가치 개념들을; 미트라교는 경배 행사의 예식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그와 같은 보존 기법을 제공하였다.

both in appearance and in the character of their ritual. A majority of such places of worship were underground, and both contained altars whose backgrounds variously depicted the sufferings of the savior who had brought salvation to a sin-cursed human race.

98:6.4 (1083.4) Always had it been the practice of Mithraic worshipers, on entering the temple, to dip their fingers in holy water. And since in some districts there were those who at one time belonged to both religions, they introduced this custom into the majority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the vicinity of Rome. Both religions employed baptism and partook of the sacrament of bread and wine. The one great difference between Mithraism and Christianity, aside from the characters of Mithras and Jesus, was that the one encouraged militarism while the other was ultrapacific. Mithraism's tolerance for other religions (except later Christianity) led to its final undoing. But the deciding factor in the struggle between the two was the admission of women in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Christian faith.

98:6.5 (1083.5) In the end the nominal Christian faith dominated the Occident. Greek philosophy supplied the concepts of ethical value; Mithraism, the ritual of worship observance; and Christianity, as such, the technique for the conservation of moral and social values.

제 7 장. 그리스도교

창조자 아들은 화가 나신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유란시아의 인간성에 자신을 중여하고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에서의 인지와 그리고 하느님과 그들의 아들관계에서의 실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속죄 교리의 위대한 주창자도 이 진리의 일부분을 깨달았는데, 이는 그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화해시키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기원과 보급을 취급하는 것은 이 글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개인성, 네바돈의 미가엘 아들이 인간적으로 육신화 되어 유란시아에 그리스도로 알려진 기름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스도교는 이 갈릴리 사람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레반트 지역과 서방 전역에 퍼졌으며, 그들의 선교적 열정은 유명한 그들의 선조들인 셋-사람들과 셈족들 그리고 그들과 동시대 사람들인 진지한 불교 선생들과 견줄 만 하였다.

유란시아 신앙 체계의 하나인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 영향들, 신앙들, 예배종파들, 그리고 개인적인 개별 태도들이 혼합됨으로써 형성되었다:

7. THE CHRISTIAN RELIGION

98:7.1 (1083.6) A Creator Son did not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bestow himself upon the humanity of Urantia to reconcile an angry God but rather to win all mankind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s love and to the realization of their sonship with God. After all, even the great advocate of the atonement doctrine realized something of this truth, for he declared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98:7.2 (1083.7) It is not the province of this paper to deal with the origin and dissemina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Suffice it to say that it is built around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the humanly incarnate Michael Son of Nebadon, known to Urantia as the Christ, the anointed one. Christianity was spread throughout the Levant and Occident by the followers of this Galilean, and their missionary zeal equaled that of their illustrious predecessors, the Sethites and Salemites, as well as that of their earnest Asiatic contemporaries, the Buddhist teachers.

98:7.3 (1084.1) The Christian religion, as a Urantian system of belief, arose through the compounding of the following teachings, influences, beliefs, cults, and personal individual attitudes:

1. 지난간 4,000년 동안 발생되었던 서방과 동방의 모든 종교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인 멜기세덱의 가르침들.

2. 섭리와 최극이신 야훼 둘 모두에 대한 믿음, 도덕, 윤리, 신학에 대한 히브리의 체계.

3. 유대교와 미트라교 둘 모두에게 이미 그 흔적을 남겼던, 조화우주 선과 악 사이의 투쟁에 대한 조로아스터의 관념. 미트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투쟁들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하여, 그 이란 선지자의 신조들은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헬라화 되고 라틴화 된 변형된 형태의 독단론, 교의 그리고 우주론의 철학적 기질과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4. 신비적 예배종파들, 특별히 미트라교 그리고 프리지아 예배종파에서의 위대한 어머니 경배.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탄생 전설조차도 이란의 생존자-영웅인 미트라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로마식 변형에 의해 오염되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압박한 이 사건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미 알려졌던 오직 선물을 간직한 소수의 목동들에 의해서만 목격되었다고 생각되어왔다.

5.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간 일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 하느님의 아들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로서의 나사렛 예수의 실체성.

6. 타루수스의 바울이 가진 개인적 견해. 그리고 그가 청년기였을 때 미트라교가 타루수스의 지배적인 종교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선의에서 쓴 자신의 편지들이 어느 날 더 후대의 그리스도교인들에 의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선의를 가진 그러한 선생들은 자신들이 쓴 글들이 후대의 계승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기에 알맞게 할 의무가 없었음이 당연하다.

7.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를 거쳐 시라쿠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명에 젖은 사람들의 철학적인 생각. 그리스인들의 철학은 다른 어떤 현행 종교 체계보다도 바울의 그리스도교 개조품에 더 잘 조화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서방에서 그리스도교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바울의 신학과 결부된 그리스의 철학은 여전히 유럽의 윤리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예수의 기원적인 가르침들이 서방에 침투되면서, 그것들은 서방화 되었고, 그것들이 서방화 되면서, 그것들은 모든 종족들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잠재적으로 보편적인 호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백인 종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 관례에 잘 적응된 종교가 되었다. 그것이 비록, 그 가르침의 길을 따르려고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

98:7.4 (1084.2) 1. The Melchizedek teachings, which are a basic factor in all the religions of Occident and Orient that have arisen in the last four thousand years.

98:7.5 (1084.3) 2. The Hebraic system of morality, ethics, theology, and belief in both Providence and the supreme Yahweh.

98:7.6 (1084.4) 3. The Zoroastrian conception of the struggle between cosmic good and evil, which had already left its imprint on both Judaism and Mithraism. Through prolonged contact attendant upon the struggles between Mithraism and Christianity, the doctrines of the Iranian prophet became a potent factor in determining the theologic and philosophic cast and structure of the dogmas, tenets, and cosmology of the Hellenized and Latinized versions of the teachings of Jesus.

98:7.7 (1084.5) 4. The mystery cults, especially Mithraism but also the worship of the Great Mother in the Phrygian cult. Even the legends of the birth of Jesus on Urantia became tainted with the Roman version of the miraculous birth of the Iranian savior-hero, Mithras, whose advent on earth was supposed to have been witnessed by only a handful of gift-bearing shepherds who had been informed of this impending event by angels.

98:7.8 (1084.6) 5. The historic fact of the human life of Joshua ben Joseph, the reality of Jesus of Nazareth as the glorified Christ, the Son of God.

98:7.9 (1084.7) 6. The personal viewpoint of Paul of Tarsus. And it should be recorded that Mithraism was the dominant religion of Tarsus during his adolescence. Paul little dreamed that his well-intentioned letters to his converts would someday be regarded by still later Christians as the “word of God.” Such well-meaning teachers must no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use made of their writings by later-day successors.

98:7.10 (1084.8) 7. The philosophic thought of the Hellenistic peoples, from Alexandria and Antioch through Greece to Syracuse and Rome.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was more in harmony with Paul's version of Christianity than with any other current religious system and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Christianity in the Occident. Greek philosophy, coupled with Paul's theology, still forms the basis of European ethics.

98:7.11 (1084.9) As the original teachings of Jesus penetrated the Occident, they became Occidentalized, and as they became Occidentalized, they began to lose their potentially universal appeal to all races and kinds of men. Christianity, today, has become a religion well adapted to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mores of the white races. It has long since ceased

러한 개별존재들에게 아직도 예수에 관한 하나의 아름다운 종교를 용감하게 묘사하지만, 예수의 종교가 되기를 그만둔 지는 오래되었다. 그것은 예수를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아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영화롭게 하고 있지만, 주(主)의 개인적인 복음은 대부분 잊혀져 있다: 주(主)의 개인적인 복음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모든 사람의 우주적 형제신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준 가르침들에 대한 긴 이야기이다. 비상시에 활동하는 네바돈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유란시아에 증여한 이후로 거의 4,000년이 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주었던 “엘 엘리온, 지고자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 속으로 침투되어 왔다. 그리고 마키벤타는 자신의 특수한 증여의 목적 성취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출현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느님 개념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가슴속에 실존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에 대한 바로 그 개념은 우주 아버지의 자녀들이 공간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행성들 위에서 흥미롭게 일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지각색의 그 자녀들의 영적 체험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불타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to be the religion of Jesus, although it still valiantly portrays a beautiful religion about Jesus to such individuals as sincerely seek to follow in the way of its teaching. It has glorified Jesus as the Christ, the Messianic anointed one from God, but has largely forgotten the Master's personal gospel: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all men.

98:7.12 (1085.1) And this is the long story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on Urantia. It is nearly four thousand years since this emergency Son of Nebadon bestowed himself on Urantia, and in that time the teachings of the “priest of El Elyon, the Most High God,” have penetrated to all races and peoples. And Machiventa was successful in achieving the purpose of his unusual bestowal; when Michael made ready to appear on Urantia, the God concept was existent in the hearts of men and women, the same God concept that still flames anew in the living spiritual experience of the manifold children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y live their intriguing temporal lives on the whirling planets of space.

98:7.13 (1085.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99 편 종교의 사회적인 문제

⇨ 098

유랜시아 책

100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99 편 종교의 사회적인 문제

섹션

소개

제 1 장. 종교와 사회적 재건

제 2 장. 제도적 종교의 약점

제 3 장. 종교와 종교인

제 4 장. 과도기 곤경

제 5 장.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들

제 6 장. 제도적인 종교

제 7 장. 종교의 공헌

PAPER 99

THE SOCIAL PROBLEMS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1. Relig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2. Weakness of Institutional Religion

3. Religion and the Religionist

4. Transition Difficulties

5. Social Aspects of Religion

6. Institutional Religion

7. Religion's Contribution

소개

종교는 사회의 세속적 제도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가질 때 스스로의 가장 높은 사회적 역할을 성취할 수 있다. 과거 시대에서는, 사회 개혁이 대체로 도덕적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변화에 자신의 태도를 적응시킬 필요가 없었다. 종교의 주요 과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의 존재하는 사회 질서 안에서 선으로 악을 대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간접적으로 영속화시키는, 문명에서의 실존적 유형이 유지되도록 조장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아무튼 종교가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조나 혹은 옛 질서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안된다. 참된 종교는 하나의 사회적 진화 수단이 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참된 종교는 새로운 경제 여건들과 문화적 필요성에 맞추어 스스로의 제도를 조절하고 활용성을 적응하려는 사회의 지적(知的) 노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종교는 과거 여러 세기의 간헐적인 사회 개혁들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광

INTRODUCTION

99:0.1 (1086.1) RELIGION achieves its highest social ministry when it has least connection with the secular institutions of society. In past ages, since social reforms were largely confined to the moral realms, religion did not have to adjust its attitude to extensive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he chief problem of religion was the endeavor to replace evil with good within the existing social order of political and economic culture. Religion has thus indirectly tended to perpetuate the established order of society, to foster the maintenance of the existent type of civilization.

99:0.2 (1086.2) But religion should not be directly concerned either with the creation of new social orders or with the preservation of old ones. True religion does oppose violence as a technique of social evolution, but it does not oppose the intelligent efforts of society to adapt its usages and adjust its institutions to new 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al requirements.

99:0.3 (1086.3) Religion did approve the occasional social reforms of past centuries, but in the

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재건에 따른 조절과 마주보기를 불가피하게 요청받고 있다.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크게 가속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종교는 이러한 새롭고도 언제까지나-변화하는 사회 질서에 맞추어서 스스로의 적응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 장. 종교와 사회적 재건

기계적 발명과 지식의 확산이 문명을 변경시키고 있다; 문화적 재앙이 피해야만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경제적인 조절과 사회적인 변화들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고 도래하고 있는 사회 질서는 천 년 동안에 만족스럽게 정착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 종족은 변화, 조절 그리고 재(再)-조절의 과정에 맞추어 재(再)-일치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한다. 인류는 새롭고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행성 운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종교는 이러한 언제까지나-변화하는 여건들과 결코-끝남이 없는 경제적 조절의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면서, 도덕적 안정성과 영적 진보를 위해 기세넘치는 영향력이 되어야만 한다.

유란시아 사회는 과거 시대에서와 같이 안정되기를 결코 바랄 수가 없다. 사회라는 증기선이 증기를 내뿜으면서 기존의 전통으로 보호되어 있던 항구를 떠났으며 이제 진화하는 운명의 높은 바다에서 항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혼(魂)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으니, 이제 도덕성으로 이루어진 해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교적 안내로 이루어진 나침반을 참을성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하나의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종교의 지상 임무는, 문명이 어떤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 문화가 어떤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이들 위험한 과도기에 인류의 이상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종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는 없지만, 지금 이들 새롭고도 재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지혜로운 안내자로 그리고 노련한 조언자로 기능하라고 긴급하게 소명(召命)을 받고 있다. 사회는 점점 더 기계적이고 점점 더 조밀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결정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종교는 이러한 새롭고도 친밀한 상호-연관들이 서로 쌍방을 퇴행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방지되도록 기능해야만 한다. 종교는 진보의 요소들이 문명의 문화적 맛을 파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조화우주 소금으로서 작용해야만 한다. 이들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격변은 오직 종교의 사명활동에 의해서만 오래 지속되는 형제신분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느님이 없는 인도주의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고상한 태도이다, 그러나 참된 종교

twentieth century it is of necessity called upon to face adjustment to extensive and continuing social reconstruction. Conditions of living alter so rapidly that institutional modifications must be greatly accelerated, and religion must accordingly quicken its adaptation to this new and ever-changing social order.

1. RELIG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99:1.1 (1086.4) Mechanical inventions an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re modifying civilization; certain economic adjustments and social changes are imperative if cultural disaster is to be avoided. This new and oncoming social order will not settle down complacently for a millennium. The human race must become reconciled to a procession of changes, adjustments, and readjustments. Mankind is on the march toward a new and unrevealed planetary destiny.

99:1.2 (1086.5) Religion must become a forceful influence for moral stability and spiritual progression functioning dynamically in the midst of these ever-changing conditions and never-ending economic adjustments.

99:1.3 (1086.6) Urantia society can never hope to settle down as in past ages. The social ship has steamed out of the sheltered bays of established tradition and has begun its cruise upon the high seas of evolutionary destiny; and the soul of man, as never before in the world's history, needs carefully to scrutinize its charts of morality and painstakingly to observe the compass of religious guidance. The paramount mission of religion as a social influence is to stabilize the ideals of mankind during these dangerous times of transition from one phase of civilization to another, from one level of culture to another.

99:1.4 (1087.1) Religion has no new duties to perform, but it is urgently called upon to function as a wise guide and experienced counselor in all of these new and rapidly changing human situations. Society is becoming more mechanical, more compact, more complex, and more critically interdependent. Religion must function to prevent these new and intimate interassociations from becoming mutually retrogressive or even destructive. Religion must act as the cosmic salt which prevents the ferments of progression from destroying the cultural savor of civilization. These new social relations and economic upheavals can result in lasting brotherhood only by the ministry of religion.

99:1.5 (1087.2) A godless humanitarianism is, humanly speaking, a noble gesture, but true

만이 사회적 집단에서 한 집단의 필요와 고난에 대해 다른 집단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과거에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어떤 도움도 없는 하류 계층의 고통과 억압에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제도적 종교가 수동적으로도 존속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이들 하류 사회 계층이 더 이상 그토록 비참하게 무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도움도 없는 처지가 아니다.

종교는 사회적 재건과 경제적 재조직이라는 세속적인 일에 근본적으로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 명령들과 영적 교훈들에 대해, 인간적 삶과 초월적인 생존에 대한 그것의 진보적 철학에 대해 분명하고도 활기 있게 다시 진술함으로써 문명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진보들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의 영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는 인간 언어 사전이 개편될 때마다 다시 진술되어야만 한다.

제 2 장. 제도적 종교의 약점

제도적인 종교는 지금 절박한 전 세계적 사회 재건과 경제적 재조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없고 지도력도 제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많거나 적거나 다소간, 반드시 재건을 겪어야하는 운명을 가진, 그 사회 계층과 경제 체계에서의 유기적인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오직 개인적 영적 체험의 실제 종교만이 문명의 현재 위기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창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도적인 종교는 현재 악순환의 막다른 궁지에 갇혀 있다.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을 재건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재건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질서에서 너무나 많이 집대성을 이루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건되기까지는 그 자신을 재건시킬 수 없다.

종교인들은 사회와 산업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집단들이나 당파들 또는 학파들로서가 아니라 개별존재들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렇게 활동하려는 종교 집단은, 종교적인 활동들과는 상관없이, 곧 정치적 정당이나 경제적 조직 또는 사회적 제도로 바뀐다. 종교적 집단화주의(集團化主義)는 그 노력을 종교적인 목적 추진으로 국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가들은 그들의 종교가 그들에게 향상된 조화우주적 통찰력을 자질로서 부여해 왔고, 그리고 우월한 사회적 지혜 곧, 하느님을 최극으로 사랑하려는 그리고 각 사람을 하늘왕국 안에서의 하나의 형제로서 사랑하려는 진지한 욕망에서 탄생되는 그러한 지혜를 수여해 온 것을 제외한다면, 사회를 재건하는 과제에서 비종교가들보다도 더 큰 어떤 가치는 없다. 이상적인 사회 계층은 그 안

religion is the only power which can lastingly increase the responsiveness of one social group to the needs and sufferings of other groups. In the past, institutional religion could remain passive while the upper strata of society turned a deaf ear to the sufferings and oppression of the helpless lower strata, but in modern times these lower social orders are no longer so abjectly ignorant nor so politically helpless.

99:1.6 (1087.3) Religion must not become organically involved in the secular work of soci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reorganization. But it must actively keep pace with all these advances in civilization by making clear-cut and vigorous restatements of its moral mandates and spiritual precepts, its progressive philosophy of human living and transcendent survival. The spirit of religion is eternal, but the form of its expression must be restated every time the dictionary of human language is revised.

2. WEAKNESS OF INSTITUTIONAL RELIGION

99:2.1 (1087.4) Institutional religion cannot afford inspiration and provide leadership in this impending world-wide social reconstruction and economic reorganization because it has unfortunately become more or less of an organic part of the social order and the economic system which is destined to undergo reconstruction. Only the real religion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can function helpfully and creatively in the present crisis of civilization.

99:2.2 (1087.5) Institutional religion is now caught in the stalemate of a vicious circle. It cannot reconstruct society without first reconstructing itself; and being so much an integral part of the established order, it cannot reconstruct itself until society has been radically reconstructed.

99:2.3 (1087.6) Religionists must function in society, in industry, and in politics as individuals, not as groups, parties, or institutions. A religious group which presumes to function as such, apart from religious activities, immediately becomes a political party, an economic organization, or a social institution. Religious collectivism must confine its efforts to the furtherance of religious causes.

99:2.4 (1087.7) Religionists are of no more value in the tasks of social reconstruction than nonreligionists except in so far as their religion has conferred upon them enhanced cosmic foresight and endowed them with that superior social wisdom which is born of the sincere desire to love God supremely and to love every man as a brother in the heavenly kingdom. An ideal social order is

에서 각 사람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교회가 과거에는 기존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질서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조속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의 유일한 본연의 태도는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 격렬한 혁명 대신 평화로운 진화—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선한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교리 속에 있다.

현대 종교는 신속하게 바뀌는 사회적 변화들을 향하여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이 너무나도 속속들이 전통화 되고, 독단화 되고, 그리고 제도화 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체험의 종교는 이 모든 사회적 발전들과 경제적 격변들을 계속 앞서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은 도덕적 안정, 사회적 안내 그리고 영적 선도자로 계속 활동한다. 참된 종교는 하느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고 분투하는 체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지혜와 훌륭한 문화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 준다.

제 3 장. 종교와 종교인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시민 사회의 모든 장애물들과 사회적인 약속들 그리고 경제적인 동맹관계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오직 후대의 제도화 된 그리스도교만이 서방 문명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하늘의 왕국은 사회적 계층도 경제적 계층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들의 영적인 형제신분일 뿐이다. 그러한 형제신분은 참말로, 그 자체로 몹시 놀라운 정치적 경제적 반향(反響)을 수반하는 새롭고도 경이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종교인은 사회적인 고난에 냉담하지 않고, 시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관심이 없지 않으며, 경제적인 의견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인 횡포에 무감각하지도 않다. 종교는 사회 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개별 시민을 영성화 시키고 이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는, 이들 개별 종교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집단들의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 될 때 문화적 문명이 그들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도의 문화적 문명의 달성은 처음에는 시민의 이상적인 유형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한 시민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진보된 인간 사회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제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사회적 기능구조들을 요구한다.

교회는, 과다하게 거짓된 정서 때문에, 오랫동안

that in which every man loves his neighbor as he loves himself.

99:2.5 (1087.8) The institutionalized church may have appeared to serve society in the past by glorifying the establishe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s, but it must speedily cease such action if it is to survive. Its only proper attitude consists in the teaching of nonviolence, the doctrine of peaceful evolution in the place of violent revolution —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all men.

99:2.6 (1088.1) Modern religion finds it difficult to adjust its attitude toward the rapidly shifting social changes only because it has permitted itself to become so thoroughly traditionalized, dogmatized, and institutionalized. The religion of living experience finds no difficulty in keeping ahead of all these social developments and economic upheavals, amid which it ever functions as a moral stabilizer, social guide, and spiritual pilot. True religion carries over from one age to another the worth-while culture and that wisdom which is born of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and striving to be like him.

3. RELIGION AND THE RELIGIONIST

99:3.1 (1088.2) Early Christianity was entirely free from all civil entanglements, social commitments, and economic alliances. Only did later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become an organic part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Occidental civilization.

99:3.2 (1088.3) The kingdom of heaven is neither a social nor economic order; it is an exclusively spiritual brotherhood of God-knowing individuals. True, such a brotherhood is in itself a new and amazing social phenomenon attended by astounding politic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99:3.3 (1088.4) The religionist is not unsympathetic with social suffering, not unmindful of civil injustice, not insulated from economic thinking, neither insensible to political tyranny. Religion influences social reconstruction directly because it spiritualizes and idealizes the individual citizen. Indirectly, cultural civilization is influenced by the attitude of these individual religionists as they become active and influential members of various social, moral, economic, and political groups.

99:3.4 (1088.5) The attainment of a high cultural civilization demands, first, the ideal type of citizen and, then, ideal and adequate social mechanisms wherewith such a citizenry may control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such an advanced human society.

99:3.5 (1088.6) The church, because of overmuch

동안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아 왔으며, 이것이 모두 좋은 것이 되어 왔지만, 바로 이 정서가 어리석게도, 문명의 진보를 엄청나게 지체시켜왔던 인종적으로 퇴화된 혈통들을 영존시키도록 이끌어왔다.

개별적으로 사회 재건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맹렬히 거부하는 반면, 자기들의 사회 개혁들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열광적인 종교적 속성을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다소 인식되지 않은 종교적인 자극이 지금-현재의 사회 재건 계획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식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이러한 모든 유형의 종교 활동의 큰 약점은 그것이 공개적인 종교 비판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자아-수정의 유익한 차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가 건설적인 비판에 의해 단련 되지 않고, 철학에 의해 확대되지 않고, 과학에 의해 정화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교제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한 각 나라가 자신의 종교를 군사적인 선전물로 악용할 때에는, 종교가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로 빠지는 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사랑이 결여된 열의는 항상 종교에 해로운 반면, 박해는 종교 활동들을 전환시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거나 신학적인 추진력을 성취하게 한다.

종교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만 부정(不淨)한 세속적 연관들로부터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1.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철학.
2.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연관들로부터의 해방.
3. 창조적이고 위안을 주며 사랑으로 확대되는 연대감.
4.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진보적인 향상과 조화우주 가치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5. 과학적인 정신적 태도의 보상에 의한, 광신적 태도 예방.

비록 한 개별 시민으로서 그러한 한 사람의 종교인이 어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재건 운동에서 탁월한 영도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집단으로서의 종교인들은 종교 이외의 어떤 것에도 결코 자신들을 관련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렵지만 바람직한 모든 사회적 봉사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을 거두도록 개별 시민을 인도하게 될 때 그의 속에 그러한 조화우주 충성심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영감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false sentiment, has long ministered to the underprivileged and the unfortunate, and this has all been well, but this same sentiment has led to the unwise perpetuation of racially degenerate stocks which have tremendously retarded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99:3.6 (1088.7) Many individual social reconstructionists, while vehemently repudiating institutionalized religion, are, after all, zealously religious in the propagation of their social reforms. And so it is that religious motivation, personal and more or less unrecognized, is playing a great part in the present-day program of social reconstruction.

99:3.7 (1088.8) The great weakness of all this unrecognized and unconscious type of religious activity is that it is unable to profit from open religious criticism and thereby attain to profitable levels of self-correction. It is a fact that religion does not grow unless it is disciplined by constructive criticism, amplified by philosophy, purified by science, and nourished by loyal fellowship.

99:3.8 (1088.9) There is always the great danger that religion will become distorted and perverted into the pursuit of false goals, as when in times of war each contending nation prostitutes its religion into military propaganda. Loveless zeal is always harmful to religion, while persecution diverts the activities of religion into the achievement of some sociologic or theologic drive.

99:3.9 (1089.1) Religion can be kept free from unholy secular alliances only by:

- 99:3.10 (1089.2) 1. A critically corrective philosophy.
- 99:3.11 (1089.3) 2. Freedom from a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lliances.
- 99:3.12 (1089.4) 3. Creative, comforting, and love-expanding fellowships.
- 99:3.13 (1089.5) 4. Progressive enhancement of spiritual insight and the appreciation of cosmic values.
- 99:3.14 (1089.6) 5. Prevention of fanaticism by the compensations of the scientific mental attitude.

99:3.15 (1089.7) Religionists, as a group, must never concern themselves with anything but *religion*, albeit any one such religionist, as an individual citizen, may become the outstanding leader of some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reconstruction movement.

99:3.16 (1089.7) It is the business of religion to create, sustain, and inspire such a cosmic loyalty in the individual citizen as will direct him to the achievement of success in the advancement of all these difficult but desirable social services.

제 4 장. 과도기 곤경

참된 종교는 그 종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향기를 품게 하며 인간 동료관계 속에 통찰력을 조성한다. 그러나 종교 집단들을 형식화시키는 것은 그 집단의 조직을 촉진시켰던 바로 그 가치들을 여러 번 파괴시킨다. 인간적인 우정과 신성한 종교는 각각의 성장이 균등하고 조화-협동을 이룬다면 서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의의(意義) 깊은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적 관계적-연합들—가정들, 학교들, 모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들이 적용되게 하고 참된 모든 유머를 고양시킨다.

사회적인 지도력은 영적 통찰력에 의해 변환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적 활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된 목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어린이들과 더불어, 종교는 가정생활의 결함을 이룩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데, 생생하고도 성장하는 신앙이 그렇게 한다. 가정생활은 자녀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종교 없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족함은 긴밀한 이 인간 관계적-연합의 어려움들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20세기의 초기에는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이 개인적 종교 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 고난은 옛날의 종교적 충성으로부터, 창발하는 새로운 의미들과 가치들로의 전환에 따른 타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참된 종교는 매일매일의 일생에서의 평범한 실체들과 역동적으로 직면하는, 의미 넘치는 삶의 길이다. 그러나 만일 종교가 성격에서의 개별존재의 발전을 자극하고 그리고 개인성의 집대성활동을 증강시키고자 한다면, 종교는 결코 표준화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교가 체험의 평가를 자극하고, 가치-유혹물로서 봉사하려면, 결코 틀에 박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종교가 최극 충성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형식화 되어서는 안 된다.

문명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서 어떤 격변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종교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주권이 지배하는 그러한 개별존재의 체험을 육성한다면, 진실되고 가치가 있으니, 이는 그러한 것이 최극 실체의 참된 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과 경배를 통하여 사람과의 동료관계로서 그리고 하느님과 의 아들관계로서 의미넘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개인적 행위를 지배한다. 순전히 사실적 지식은 만일 그것이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종교의 활성화는 초-감정적이며, 그것은 필사자의 일생 안에서 영적 에너지들과 접촉하고 그것을 풀어줌으로서 초월 차원에서 인간 체험 전체를 통합한다.

심리학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20세기

4. TRANSITION DIFFICULTIES

99:4.1 (1089.9) Genuine religion renders the religionist socially fragrant and creates insights into human fellowship. But the formalization of religious groups many times destroys the very values for the promotion of which the group was organized. Human friendship and divine religion are mutually helpful and significantly illuminating if the growth in each is equalized and harmonized. Religion puts new meaning into all group associations — families, schools, and clubs. It imparts new values to play and exalts all true humor.

99:4.2 (1089.10) Social leadership is transformed by spiritual insight; religion prevents all collective movements from losing sight of their true objectives. Together with children, religion is the great unifier of family life, provided it is a living and growing faith. Family life cannot be had without children; it can be lived without religion, but such a handicap enormously multiplies the difficulties of this intimate human association. During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family life, next to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suffers most from the decadence consequent upon the transition from old religious loyalties to the emerging new meanings and values.

99:4.3 (1089.11) True religion is a meaningful way of living dynamically face to face with the commonplace realities of everyday life. But if religion is to stimulate individual development of character and augment integration of personality, it must not be standardized. If it is to stimulate evaluation of experience and serve as a value-lure, it must not be stereotyped. If religion is to promote supreme loyalties, it must not be formalized.

99:4.4 (1089.12) No matter what upheavals may attend the social and economic growth of civilization, religion is genuine and worth while if it fosters in the individual an experience in which the sovereign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prevails, for such is the true spiritual concept of supreme reality. And through love and worship this becomes meaningful as fellowship with man and sonship with God.

99:4.5 (1090.1) After all, it is what one believes rather than what one knows that determines conduct and dominates personal performances. Purely factual knowledge exerts very little influence upon the average man unless it becomes emotionally activated. But the activation of religion is superemotional, unifying the entire human experience on transcendent levels through contact with, and release of, spiritual energies in the mortal life.

99:4.6 (1090.2) During the psychologically unsettled

동안에, 경제적 격변들과 도덕적 역류들 그리고 과학 시대의 회오리 바람같은 과도기의 사회적 격랑의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인간적으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으며, 그리고 안정을 하지 못한다; 세계 역사상 전례 없이, 그들은 진정한 종교가 주는 위로와 안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과학적 성취와 기계적 발전에 직면하면서, 영적인 침체와 철학적 혼돈이 있다.

종교가 사심-없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봉사를 위한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점점 더 사적(私的)인 문제가-개인적인 체험이-되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종교는 많은 2차적인 영향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왔다: 이는 문화의 갑작스런 혼합, 신조들의 혼재, 교회 권위의 실추, 가족 일생의 변화, 아울러 도시화와 기계화이다.

사람의 가장 큰 영적 위협은 부분적인 진보, 완결되지 않은 성장의 곤경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계시 종교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두려움의 진화 종교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대 과학 특히 심리학은 두려움, 미신 그리고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종교들을 단지 약화시켜 왔다.

과도기는 항상 혼란이 함께 따라오게 되며,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는 다음과 같은 종교에서의 세 가지 철학들 간에 있는 거대한 분투가 끝나기 전에는, 종교 세계에는 평온이 거의 없을 것이다:

1. 여러 종교의 (섭리적 신(神)을 믿는) 영적작용적 믿음.
2. 여러 철학의 인도주의적 그리고 이상주의적 믿음.
3. 여러 과학의 기계론적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개념들.

조화우주의 실체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적 접근 방법들은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고 최극자 신(神) 안에서 시간-공간 통일을 달성하는 영과 마음과 에너지라는 삼원적 실존을 묘사하는 종교와 철학과 우주론에 대한 계시적 소개를 통하여 결국에는 반드시 조화-협동을 이루게 되어야 한다.

제 5 장.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들

종교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영적 체험—하느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인 반면 이 체험의 필연적 결과—사람을 형제로 아는 것—은 자아를 조절하여 다른 자아들에게 맞추게 하며, 그것은 종교적 삶의 사회적 또는 집단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종교는 먼저 내적 또는 개인적 조절이며, 그 다음에

times of the twentieth century, amid the economic upheavals, the moral crosscurrents, and the sociologic rip tides of the cyclonic transitions of a scientific era, thousands upon thousands of men and women have become humanly dislocated; they are anxious, restless, fearful, uncertain, and unsettled; as never before in the world's history they need the consolation and stabilization of sound religion.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scientific achievement and mechanical development there is spiritual stagnation and philosophic chaos.

99:4.7 (1090.3) There is no danger in religion's becoming more and more of a private matter — a personal experience — provided it does not lose its motivation for unselfish and loving social service. Religion has suffered from many secondary influences: sudden mixing of cultures, intermingling of creeds, diminution of ecclesiastical authority, changing of family life, together with urbanization and mechanization.

99:4.8 (1090.4) Man's greatest spiritual jeopardy consists in partial progress, the predicament of unfinished growth: forsaking the evolutionary religions of fear without immediately grasping the revelatory religion of love. Modern science, particularly psychology, has weakened only those religions which are so largely dependent upon fear, superstition, and emotion.

99:4.9 (1090.5) Transi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confusion, and there will be little tranquillity in the religious world until the great struggle between the three contending philosophies of religion is ended:

99:4.10 (1090.6) 1. The spiritistic belief (in a providential Deity) of many religions.

99:4.11 (1090.7) 2. The humanistic and idealistic belief of many philosophies.

99:4.12 (1090.8) 3. The mechanistic and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any sciences.

99:4.13 (1090.9) And these three partial approaches to the reality of the cosmos must eventually become harmonized by the revelatory presentation of religion, philosophy, and cosmology which portrays the triune existence of spirit, mind, and energy proceeding from the Trinity of Paradise and attaining time-space unification within the Deity of the Supreme.

5. SOCIAL ASPECTS OF RELIGION

99:5.1 (1090.10) While religion is exclusively a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 knowing God as a Father — the corollary of this experience — knowing man as a brother — entails the adjustment of the self to other selves, and that involves the social or group aspect of religious life.

는 사회적 봉사 또는 집단적 조절의 문제가 된다. 사람에게 사교성이 있다는 사실은 종교적 집단들이 실존하도록 필연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종교 집단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은 지능적 지도력에 의해 매우 많이 영향을 받는다. 원시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종교적 집단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집단들과 항상 매우 다르지는 않았다. 종교는 항상 도덕을 보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현대 사회학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반대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참된 종교는 하느님을 너희 아버지로 알고 사람을 너희 형제로 아는 것이다. 종교는 형벌을 준다는 위협이나 미래의 신비한 보답을 받는다는 마술 같은 약속들 안에서 믿는 노예근성에서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의 종교는 지금까지 인간 종족을 활성화시킨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예수는 전통을 무너뜨렸고, 독단론을 파괴하였으며, 인류로 하여금 시간과 영원 속에서 가장 높은 이상들을 성취하도록—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도록—부르셨다.

종교는 종교 집단이 모든 다른 집단—하늘의 왕국의 영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기능할 기회가 거의 없다.

사람의 온통 타락에 대한 교리는, 종교에 있는, 일으켜 세우는 본성과 그리고 영감을 주는 가치에서 사회적 반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종교의 잠재력의 많은 것을 파괴하였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믿는 자들을 영성화 하는 일에 효력이 있는 모든 종교적 믿음은 그러한 종교인의 사회생활 속에 강력한 반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종교적 체험은 영의 인도를 받는 필사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영의 열매들”을 틀림없이 맺는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들을 서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통적인 목표들을 결국에는 창출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낸다. 종교인들이 언젠가는 함께 뭉치게 될 것이며 심리학적인 견해들과 신학적인 신념들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이상들과 목적들이 합일을 이룬 기초 위에서 실재적으로 협동을 이룩하고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신조들보다는 목표들이 종교인들을 통합시켜야만 한다. 참된 종교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별 종교인은 영적 체험의 실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필사자들 집단이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적 태도로 동의할 수 있는 공식화된 신경(信經)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개별존재의 관계를 의미하도록 허용하라. “너희에게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너

Religion is first an inner or personal adjustment, and then it becomes a matter of social service or group adjustment. The fact of man's gregariousness perforce determines that religious groups will come into existence. What happens to these religious groups depends very much on intelligent leadership. In primitive society the religious group is not always very different from economic or political groups. Religion has always been a conservator of morals and a stabilizer of society. And this is still true, notwithstanding the contrary teaching of many modern socialists and humanists.

99:5.2 (1091.1) Always keep in mind: True religion is to know God as your Father and man as your brother. Religion is not a slavish belief in threats of punishment or magical promises of future mystical rewards.

99:5.3 (1091.2) The religion of Jesus is the most dynamic influence ever to activate the human race. Jesus shattered tradition, destroyed dogma, and called mankind to the achievement of its highest ideals in time and eternity —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99:5.4 (1091.3) Religion has little chance to function until the religious group becomes separated from all other groups — the social association of the spiritual membership of the kingdom of heaven.

99:5.5 (1091.4) The doctrine of the total depravity of man destroyed much of the potential of religion for effecting social repercussions of an uplifting nature and of inspirational value. Jesus sought to restore man's dignity when he declared that all men are the children of God.

99:5.6 (1091.5) Any religious belief which is effective in spiritualizing the believer is certain to have powerful repercussions in the social life of such a religionist. Religious experience unfailingly yield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daily life of the spirit-led mortal.

99:5.7 (1091.6) Just as certainly as men share their religious beliefs, they create a religious group of some sort which eventually creates common goals. Someday religionists will get together and actually effect co-operation on the basis of unity of ideals and purposes rather than attempting to do so on the basis of psychological opinions and theological beliefs. Goals rather than creeds should unify religionists. Since true religion is a matter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t is inevitable that each individual religionist must have his own and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realization of that spiritual experience. Let the term “faith” stand for the individual's relation to God rather than for the creedal formulation of what some group of mortals have been able to agree upon as a common religious attitude. “Have you

희 자신에게 적용하라.”

신앙이 오직 이상적인 가치들에 대한 파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신앙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선언하는 신약 성서의 정의에 의해 잘 묘사되고 있다.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을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종교는 생각보다는 춤으로 표출되었다. 현대인들은 여러 신조들을 생각해 내었고 종교적 신앙에 대한 많은 표준들을 만들어 내었다. 미래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로 살아가야만 한다, 자신을 사람의 형제신분의 전심어린 봉사에 바쳐야만 한다. 사람이 너무나 개인적이고도 너무나 숭고하여 “말해야 할 너무나 깊이 깔려있는 느낌”으로만 실현되고 표현되어야 할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절실한 때이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들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의 말을 외워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는 그들이 서로 모여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라고—유란시아에서 그의 증여 삶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함께 저녁을 같이하라—정했을 뿐이었다.

그리스도교인 들이 그리스도를 영적 지도력에서의 최극 이상이라고 제시하면서, 하느님을-의식하고 있는 남녀들에게, 지난 시대에 저마다 자신들의 국가나 민족적 계몽에 기여해왔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역사적 지도력을, 감히 거부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른다.

제 6 장. 제도적인 종교

분파주의는 제도화된 종교의 질병이며, 독단주의는 영적 본성을 노예화하는 것이다. 종교 없는 교회보다는 교회 없는 종교가 훨씬 더 낫다. 20 세기의 종교적 혼란이,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영적 퇴폐의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란은 파멸이 이루어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의 사회화에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 종교에 대한 충성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향한 이끌림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최극 가치의 인력을 자라게 하고; 사심-없는 동료관계에서의 봉사를 강화하고; 가족생활의 잠재성을 찬미하고; 종교 교육을 증진시키고; 지혜로운 조인과 영적 안내를 제공하고; 집단경배를 장려하는 것이 집단적 종교 활동의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종교는 인간 친구관계를 복돋우고, 도덕을 보존하며,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질적 복음이 퍼져 나가도록 조성한다.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될 때에는, 선(善)에 대

faith? Then have it to yourself.”

99:5.8 (1091.7) That faith is concerned only with the grasp of ideal values is shown by the New Testament definition which declares that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99:5.9 (1091.8) Primitive man made little effort to put his religious convictions into words. His religion was danced out rather than thought out. Modern men have thought out many creeds and created many tests of religious faith. Future religionists must live out their religion, dedicate themselves to the wholehearted serv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It is high time that man had a religious experience so personal and so sublime that it could be realized and expressed only by “feelings that lie too deep for words.”

99:5.10 (1091.9) Jesus did not require of his followers that they should periodically assemble and recite a form of words indicative of their common beliefs. He only ordained that they should gather together to actually *do something* — partake of the communal supper of the remembrance of his bestowal life on Urantia.

99:5.11 (1091.10) What a mistake for Christians to make when, in presenting Christ as the supreme ideal of spiritual leadership, they dare to require God-conscious men and women to reject the historic leadership of the God-knowing men who have contributed to their particular national or racial illumination during past ages.

6. INSTITUTIONAL RELIGION

99:6.1 (1092.1) Sectarianism is a disease of institutional religion, and dogmatism is an enslavement of the spiritual nature. It is far better to have a religion without a church than a church without religion. The religious turmoil of the twentieth century does not, in and of itself, betoken spiritual decadence. Confusion goes before growth as well as before destruction.

99:6.2 (1092.2) There is a real purpose in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It is the purpose of group religious activities to dramatize the loyalties of religion; to magnify the lure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o foster the attractions of supreme values; to enhance the service of unselfish fellowship; to glorify the potentials of family life; to promote religious education; to provide wise counsel and spiritual guidance; and to encourage group worship. And all live religions encourage human friendship, conserve morality, promote neighborhood welfare, and facilitate the spread of the essential gospel of their respective messages of eternal salvation.

99:6.3 (1092.3) But as religion becomes

한 힘이 삭감되는 반면 악에 대한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대된다. 형태화 된 종교의 위험성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앙의 고정과 정서의 결정화; 세속화에 따른 기존의 호기심들의 누적; 진리를 규격화시키고 고정화시키려는 경향; 하느님께 대한 예배봉사로부터 교회의 예배봉사로 바꾸려는 종교적 전환; 사명활동자보다는 관리행정자가 되려는 영도자들의 성향; 파벌을 조성하고 경쟁적인 분파들을 만드는 경향; 압제적인 성직자 권한의 제정; 배타적인 “선택된-민족”의 태도의 창조; 성스러움에 대한 잘못된되고 과장된 관념의 조장; 종교의 격식화와 경배의 고착화; 현재의 요구들을 무시하면서 과거를 숭배하려는 경향; 종교에 대한 최신의 해석에서의 실패; 세속적인 제도들의 기능상의 혼란; 그것은 종교적인 특권계급들이라는 악한 차별 제도를 만들며; 관행에 따른 편협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모험적인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점차 잃어간다.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국 건축자들로써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풀어주는 대신에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활동들 속에 제한시킨다.

제 7 장. 종교의 공헌

교회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종교 집단들은 모든 세속적 활동들로부터 초연해야만 하며, 동시에 종교는 인간적 제도들의 사회적 조화-협동 체제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어떤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삶은 의미 넘치는 것으로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사람은 반드시 종교에서의 스스로의 정화와 철학에서의 스스로의 교정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정치학은 반드시 종교적 생활에 의해 공급되는 통찰력과 동기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학으로부터 배운 기법을 가지고 경제와 산업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모든 사회적 재구성에서, 종교는 초월적 목적에 대한 안정된 충성심, 즉각적이고 현세적인 목적들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확고한 목표를 제공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오는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필사 사람은 멀리-미치는 조화우주 전망의 식량이 필요하다.

종교는 사람에게 땅을 마주하는 그 위에서 용기 있게 그리고 기쁨 넘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준다; 그것은 인내가 열정과, 열성에 통찰력이, 동정심이 힘과, 그리고 이상이 에너지와 서로 합치게 한다.

사람은 만일 자신이 하느님의 주권적 현존 앞에서 명상하고 신성한 의미들과 영적인 가치들의 실체들을 헤아리지 않는 한, 결코 현세적인 문제

institutionalized, its power for good is curtailed, while the possibilities for evil are greatly multiplied. The dangers of formalized religion are: fixation of beliefs and crystallization of sentiments; accumulation of vested interests with increase of secularization; tendency to standardize and fossilize truth; diversion of religion from the service of God to the service of the church; inclination of leaders to become administrators instead of ministers; tendency to form sects and competitive divisions; establishment of oppressive ecclesiastical authority; creation of the aristocratic “chosen-people” attitude; fostering of false and exaggerated ideas of sacredness; the routinizing of religion and the petrification of worship; tendency to venerate the past while ignoring present demands; failure to make up-to-date interpretations of religion; entanglement with functions of secular institutions; it creates the evil discrimination of religious castes; it becomes an intolerant judge of orthodoxy; it fails to hold the interest of adventurous youth and gradually loses the saving message of the gospel of eternal salvation.

99:6.4 (1092.4) Formal religion restrains men in their personal spiritual activities instead of releasing them for heightened service as kingdom builders.

7. RELIGION'S CONTRIBUTION

99:7.1 (1092.5) Though churches and all other religious groups should stand aloof from all secular activities, at the same time religion must do nothing to hinder or retard the social co-ordination of human institutions. Life must continue to grow in meaningfulness; man must go on with his reformation of philosophy and his clarification of religion.

99:7.2 (1092.6) Political science must effect the reconstruction of economics and industry by the techniques it learns from the social sciences and by the insights and motives supplied by religious living. In all social reconstruction religion provides a stabilizing loyalty to a transcendent object, a steadying goal beyond and above the immediate and temporal objective.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s of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mortal man needs the sustenance of a far-flung cosmic perspective.

99:7.3 (1093.1) Religion inspires man to live courageously and joyfully on the face of the earth; it joins patience with passion, insight to zeal, sympathy with power, and ideals with energy.

99:7.4 (1093.2) Man can never wisely decide temporal issues or transcend the selfishness of personal interests unless he meditates in the presence of

들을 현명하게 결정하거나 개인적 이익에서의 이기심을 초월할 수 없다.

경제적인 상호 의존과 사회적인 형제우애관계는 결국 형제신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몽상가이다, 그러나 과학이 그를 정신차리게 만듦으로써 그로서 광신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을 멀리 줄어들게 하면서 종교가 그를 당장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필요성이 사람을 실체와 묶어놓고,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바로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확대되고 진보하는 조화우주 시민 관계의 영원한 실체들과 얼굴을 마주하도록 데려온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the sovereignty of God and reckons with the realities of divine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99:7.5 (1093.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social fraternity will ultimately conduce to brotherhood. Man is naturally a dreamer, but science is sobering him so that religion can presently activate him with far less danger of precipitating fanatical reactions. Economic necessities tie man up with reality, and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brings this same man face to face with the eternal realities of an ever-expanding and progressing cosmic citizenship.

99:7.6 (1093.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0 편 인간 체험 속의 종교

⇨ 099

유랜시아 책

101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0 편 인간 체험 속의 종교

섹션

소개

- 제 1 장. 종교적 성장
- 제 2 장. 영적 성장
- 제 3 장. 최극 가치의 개념들
- 제 4 장. 성장의 문제들
- 제 5 장. 전향과 신비주의
- 제 6 장. 종교적인 삶의 징후들
- 제 7 장. 종교적인 삶의 절정

PAPER 100

RELIGION IN HUMAN EXPERIENCE

SECTIONS

Introduction

- 1. Religious Growth
- 2. Spiritual Growth
- 3. Concepts of Supreme Value
- 4. Problems of Growth
- 5. Conversion and Mysticism
- 6. Marks of Religious Living
- 7. The Acme of Religious Living

소개

역동적인 종교 생활의 체험은 평범한 개별 존재를 이상적인 힘을 가진 개인성으로 변환시킨다. 종교는 각 개인의 진보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의 진보를 충족시키며, 각 개별존재의 진보는 전체의 성취를 통하여 증강된다.

영적인 성장은 다른 종교인들과의 긴밀한 관계적-연합에 의하여 서로 자극을 받는다. 사랑은 종교적 성장—주관적인 충족 대신 객관적인 매력—에 토양을 제공하며 더욱이 그것은 최극의 주관적 만족을 가져온다. 그리고 종교는 일상적인 생활의 진부한 고역을 고상하게 만든다.

INTRODUCTION

100:0.1 (1094.1) THE experience of dynamic religious living transforms the mediocre individual into a personality of idealistic power. Religion ministers to the progress of all through fostering the progress of each individual, and the progress of each is augmented through the achievement of all.

100:0.2 (1094.2) Spiritual growth is mutually stimulated by intimate association with other religionists. Love supplies the soil for religious growth — an objective lure in the place of subjective gratification — yet it yields the supreme subjective satisfaction. And religion ennobles the commonplace drudgery of daily living.

제 1 장. 종교적 성장

종교가 의미들의 성장과 가치들의 증진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들이 절대차원으로 들어 오를 때는 반드시 악(惡)이 귀결된다. 어린이는 즐거움의 내용에 따라서 체험을 평가한다; 성숙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보다 높은 의미들로 치환된 양(量), 여러 가지 생활환경과 조화우주적 관계들의 가장 높은 개념들에 대한 충성

1. RELIGIOUS GROWTH

100:1.1 (1094.3) While religion produces growth of meanings and enhancement of values, evil always results when purely personal evaluations are elevated to the levels of absolutes. A child evaluates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pleasure; maturity is proportional to the substitution of higher meanings for personal

심에 비례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성장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착되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의미들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서로 다른 시대들에, 계속되는 문화들 속에서, 그리고 발전하는 문명의 발생 단계들 속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편견과 무지가 성장을 억제하는 주된 것들이다.

발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그 자신만의 종교적 체험이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이미-만들어진 어른의 체험을 그에게 기세로서 밀어붙이지 말라. 이미 확립되어있는 교육 체제를 통하여 두루, 한해 한해 진보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지적 진보를 뜻하지 않음을, 영적 성장은 더더욱 아주 적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휘의 확대가 성격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단순한 산출 결과에 의해서 진실로 가리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보에 의해서 표시된다. 실제 교육적 성장은 이상의 향상, 가치의 증가된 깊은 이해, 가치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최극 가치에 대한 증강된 충성에 의해서 가리켜진다.

어린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어른 연관-동료들의 충성심에 의해서만 영구적으로 감명을 받는다; 교훈이나 본보기조차도 계속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충성스런 개인들은 성장하는 개인들이다; 성장은 감명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체이다. 오늘을 충성으로 살라—성장하라—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매 순간마다 올챙이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종교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토양은 자아-실현의 진보적인 일생, 자연적 성향의 조화-협동, 호기심의 발동과 타당한 모험의 즐길, 만족함의 느낌의 체험, 주목하기와 알아차림에의 두려워하는 자극의 기능작용, 경이로움의-매혹, 그리고 작고 빈약함의 정상적 의식, 즉 겸손,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성장은 자아-비판으로 완수되는 자아신분의 발견—곧 양심에 근거를 두는데, 이는 양심은 실제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습관들, 곧 개인적 이상들에 의한 자기자아에의 비판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체험은 육체적인 건강과 타고난 기질 그리고 사회 환경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세적 조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바쳐진 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면의 영적 진보를 막지 않는다.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들 속에는 만일 그들이 특별히 억압하지만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는 성장과 자아-실현에 대한 어떤 타고난 본능적 욕구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성장의 잠재를 갖는 이 구조적 자질을 육성하는 확실한 기법은 최극 가치들에 대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종교는 증여되거나, 받아들여거나, 빌리거나,

pleasure, even loyalties to the highest concepts of diversified life situations and cosmic relations.

100:1.2 (1094.4) Some persons are too busy to grow and are therefore in grave danger of spiritual fixation. Provision must be made for growth of meanings at differing ages, in successive cultures, and in the passing stages of advancing civilization. The chief inhibitors of growth are prejudice and ignorance.

100:1.3 (1094.5) Give every developing child a chance to grow his own religious experience; do not force a ready-made adult experience upon him. Remember, year-by-year progress through an established educational regime does not necessarily mean intellectual progress, much less spiritual growth. Enlargement of vocabulary does not signify development of character. Growth is not truly indicated by mere products but rather by progress. Real educational growth is indicated by enhancement of ideals, increased appreciation of values, new meanings of values, and augmented loyalty to supreme values.

100:1.4 (1094.6) Children are permanently impressed only by the loyalties of their adult associates; precept or even example is not lastingly influential. Loyal persons are growing persons, and growth is an impressive and inspiring reality. Live loyally today — grow — and tomorrow will attend to itself. The quickest way for a tadpole to become a frog is to live loyally each moment as a tadpole.

100:1.5 (1094.7) The soil essential for religious growth presupposes a progressive life of self-re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natural propensities, the exercise of curiosity and the enjoyment of reasonable adventure, the experiencing of feelings of satisfaction, the functioning of the fear stimulus of attention and awareness, the wonder-lure, and a normal consciousness of smallness, humility. Growth is also predicated on the discovery of selfhood accompanied by self-criticism — conscience, for conscience is really the criticism of oneself by one's own value-habits, personal ideals.

100:1.6 (1095.1) Religious experience is markedly influenced by physical health, inherited temperament, and social environment. But these temporal conditions do not inhibit inner spiritual progress by a soul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re are present in all normal mortals certain innate drives toward growth and self-realization which function if they are not specifically inhibited. The certain technique of fostering this constitutive endowment of the potential of spiritual growth is to maintain an attitude of wholehearted devotion to supreme values.

100:1.7 (1095.2) Religion cannot be bestowed,

배워지거나, 또는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가치들을 향하여 자라가는 탐구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다. 그래서 우주적 성장은 의미들의 누적과 가치들의 계속 확대되는 상승의 결과로 수반된다. 그러나 숭고함 그 자체는 항상 무의식적인 성장이다.

사고(思考)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서의 종교적 습관들은 영적 성장의 섭리에 기여한다. 사람은 영적 자극, 곧 일종의 조건에 따른 영적 반응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쪽으로 종교적 성향을 개발할 수 있다. 종교적 성장을 도와주는 습관들에는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세련된 감수성,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 인식, 조화우주 의미들에 대한 깊은 명상, 경건한 문제 해결, 자신의 영적 삶을 다른 동료들과 나눔, 이기심의 극복, 신성한 자비를 부정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하느님의 현존에 있는 것처럼 살기 등이 있다. 종교적 성장의 요소들은 계획적일 수 있지만 성장 그 자체는 반드시 무의식적이다.

그렇지만, 종교적 성장에서의 무의식적인 본성은, 어찌되었건, 그것이 인간 지능의 무의식적 영역이라고 가정되는 곳에서, 기능하는 활동이라고 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사자 마음의 초(超)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활동들을 신호한다. 무의식적인 종교적 성장에서의 실체의 실현에 대한 체험은, 초월의식의 기능적 실존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증거이다.

제 2 장. 영적 성장

영적인 발전은, 첫째로, 참된 영적 기세와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으며, 두 번째는, 영적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의 영적 은인으로부터 받아들이었던 것을 사명활동으로 결실을 거두어가는 것이다. 영적인 진보는 완전함에-굶주림의 자아-의식,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전심전력의 목적과 짝을 이루고 있는, 영적 빈곤의 지능적 인지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적 성장은 먼저 필요에 대한 각성이며, 다음에는 의미들에 대한 인식이고, 그 다음에는 가치들의 발견이다. 참된 영적 발전의 증거는 사랑에 의해 출발되고, 사심-없는 사명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며, 신성(神性)의 완전 이상들에 대한 전심으로의 경배에 의하여 지배되는 개인성의 표현 속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체험은 단순히 신학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종교의 실체를 구성한다.

종교는 그것이 우주에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하는, 깨우치고 그리고 현명한 기법이 되는 체험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영화롭게 된 그러한 종교는 인간 개인성의 3가지 차원 즉: 지적 차원, 모론시아적 차원, 영적 차원; 마음 위에, 진화하는

received, loaned, learned, or lost. It is a personal experience which grows proportionally to the growing quest for final values. Cosmic growth thus attends on the accumulation of meanings and the ever-expanding elevation of values. But nobility itself is always an unconscious growth.

100:1.8 (1095.3) Religious habits of thinking and acting are contributory to the economy of spiritual growth. One can develop religious predispositions toward favorable reaction to spiritual stimuli, a sort of conditioned spiritual reflex. Habits which favor religious growth embrace cultivated sensitivity to divine values, recognition of religious living in others, reflective meditation on cosmic meanings, worshipful problem solving, sharing one's spiritual life with one's fellows, avoidance of selfishness, refusal to presume on divine mercy, living as in the presence of God. The factors of religious growth may be intentional, but the growth itself is unvaryingly unconscious.

100:1.9 (1095.4) The unconscious nature of religious growth does not, however, signify that it is an activity functioning in the supposed subconscious realms of human intellect; rather does it signify creative activities in the superconscious levels of mortal mind. The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unconscious religious growth is the one positive proof of the functional existence of the superconsciousness.

2. SPIRITUAL GROWTH

100:2.1 (1095.5) Spiritual development depends, first, on the maintenance of a living spiritual connection with true spiritual forces and, second, on the continuous bearing of spiritual fruit: yielding the ministry to one's fellows of that which has been received from one's spiritual benefactors. Spiritual progress is predicated on intellectual recognition of spiritual poverty coupled with the self-consciousness of perfection-hunger, the desire to know God and be like him, the wholehearted purpos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00:2.2 (1095.6) Spiritual growth is first an awakening to needs, next a discernment of meanings, and then a discovery of values. The evidence of true spiritual development consists in the exhibition of a human personality motivated by love, activated by unselfish ministry, and dominated by the wholehearted worship of the perfection ideals of divinity. And this entire experience constitutes the reality of religion as contrasted with mere theological beliefs.

100:2.3 (1095.7) Religion can progress to that level of experience whereon it becomes an enlightened and wise technique of spiritual reaction to the universe. Such a glorified religion can function on three levels of human personality: the intellectual,

혼속에, 내주하는 영과 함께 기능할 수 있다.

영성(靈性)은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 지를, 그리고 동료 존재에게는 한 존재로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한번에 즉시 가늠하는 지도계이자 척도가 된다. 영성은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의미에서 진리를 깨닫고 가치에서 선을 발견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영적 발달은 영성을 담을 수용력으로 결정되며 또한 사랑에서 이기적 본질특성을 얼마나 제거 하느냐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실제적인 영적 지위는 신(神) 달성, 조절자가 동조된 정도와 같다. 영성(靈性)의 최종 성취는 실체의 최고점 달성, 하느님과-같음-이름의 최고점과 일치한다. 영원한 삶은 무한한 가치들에 대한 끝없는 추구이다.

인간 자아-실현의 목표는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이어야만 한다. 분투할만한 가치를 갖는 유일한 실체들은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들이다. 필사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 애정에서의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 관계적-연합들과 그리고 현세적 제도에 충성함으로써 은혜를 누린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극복하며 신성한 완전성과 최종자의 봉사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성취해야만 하는 불멸의 개인성을 세울, 영원한 기초가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의 깊은 확실성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느님을 알고 왕국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든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 되겠느냐?” 현세적인 안전은 무너지기 쉽지만, 영적인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적인 역경과 이기심과 사악함과 증오와 원한과 시기심의 밀물이 필사자의 혼을 휩쓸 때, 너희는 하나의 내적인 요새,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영의 성체가 존재한다는 확신 속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내주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에게 자신의 혼을 맡기는 것에 전념해 온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진실이다.

그러한 영적인 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점차적인 성장 또는 특이한 분기점에 의해 야기되더라도, 개인성의 새로운 적응은 물론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의 발달이 발생한다. 영으로-태어난 그러한 개별존재들은 삶에 다시 확실한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정들이 사라지고 가장 열망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큰 재앙들이 다만 새롭게 방향을 정해주는 대변혁이며, 그것은 우주적 달성에서의 새롭고도 더욱 웅대한 차원의 실체들로 이루어진 더욱 고귀한 그리고 참을성으로 견디어내는 뒤편에게, 준비단계로서 자신들의 현세적 창조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대 변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안다.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upon the mind, in the evolving soul, and with the indwelling spirit.

100:2.4 (1096.1) Spirituality becomes at once the indicator of one's nearness to God and the measure of one's usefulness to fellow beings. Spirituality enhances the ability to discover beauty in things, recognize truth in meanings, and discover goodness in values. Spiritual development is determined by capacity therefor and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elimination of the selfish qualities of love.

100:2.5 (1096.2) Actual spiritual status is the measure of Deity attainment, Adjuster attunement. The achievement of finality of spirituality is equivalent to the attainment of the maximum of reality, the maximum of Godlikeness. Eternal life is the endless quest for infinite values.

100:2.6 (1096.3) The goal of human self-realization should be spiritual, not material. The only realities worth striving for are divine, spiritual, and eternal. Mortal man is entitled to the enjoyment of physical pleasures and to the satisfaction of human affections; he is benefited by loyalty to human associations and temporal institutions; but these are not the eternal foundations upon which to build the immortal personality which must transcend space, vanquish time, and achieve the eternal destiny of divine perfection and finaliter service.

100:2.7 (1096.4) Jesus portrayed the profound surety of the God-knowing mortal when he said: “To a God-knowing kingdom believer, what does it matter if all things earthly crash?” Temporal securities are vulnerable, but spiritual sureties are impregnable. When the flood tides of human adversity, selfishness, cruelty, hate, malice, and jealousy beat about the mortal soul, you may rest in the assurance that there is one inner bastion, the citadel of the spirit, which is absolutely unassailable; at least this is true of every human being who has dedicated the keeping of his soul to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eternal God.

100:2.8 (1096.5) After such spiritual attainment, whether secured by gradual growth or specific crisis, there occurs a new orientation of personali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new standard of values. Such spirit-born individuals are so remotivated in life that they can calmly stand by while their fondest ambitions perish and their keenest hopes crash; they positively know that such catastrophes are but the redirecting cataclysms which wreck one's temporal creations preliminary to the rearing of the more noble and enduring realities of a new and more sublime level of universe attainment.

제 3 장. 최극 가치의 개념들

3. CONCEPTS OF SUPREME VALUE

종교는 정적(靜的)이고 행복한 마음의 평화 달성을 위한 기법이 아니며; 동적(動的)인 봉사를 위해 혼을 편성하는 추진력이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충성된 봉사 속에 자아신분의 전체성을 등록하는 것이다. 종교는 최극의 목표 달성, 영원한 보상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값을 지불한다. 최고로 숭고한 종교적 충성심 속에 신성시된 완성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심들은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고 영적으로 진보적이다.

종교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최극 실체를 향한 접근과 신성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들은 소망의 달성이나 감정적 좌절감으로부터 발생되지 않는다.

가치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길 때, 너희는 가치인 것과 가치를 갖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한다. 너희는 유쾌한 활동들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 체험의 언제까지나 더욱 높고 높게 진보되는 차원 위에서의 의미깊은 집대성 활동과 증진된 실현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의미는 체험이 가치에 덧붙이는 어떤 것이다; 가치를 올바르게 깊이 아는 의식이다. 고립되고 순전히 이기적인 즐거움은 의미에 대한 실질적 평가절하, 상대적인 악(惡)에 가까운 무의미한 향락을 암시할 수도 있다. 가치는 실체가 의미 있고 정신적으로 연관될 때, 그러한 관계들이 마음에 의해 감지되고 통찰될 때 체험적인 것이 된다.

가치는 결코 정적(靜的)인 것이 될 수 없다; 실체는 변화, 성장을 뜻하는 것이다. 성장, 의미의 확장 그리고 가치의 고양에 없는 그러한 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잠재적인 악이다. 조화우주에 적응하는 본질특성이 더욱 위대할수록, 그 어떤 체험도 더욱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치는 개념적인 환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체이며, 한편 항상 관계들에서의 사실에 의존한다. 가치는 항상 실재적이며 동시에 잠재적이다—예전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무엇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무엇이다.

실재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관계적-연합은 성장, 가치에 대한 체험적 깨달음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장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반드시 의미를 갖지만, 성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 인간 삶의 최극 가치는, 가치의 성장과 의미의 진보 그리고 이 두 체험의 조화우주 상호-관련의 실현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은 하느님-인식에 상응한다. 그러한 필사자는 초자연적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로 초인간으로 되어가조 있는 것이다; 불멸의 혼(魂)이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성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순조로운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성장은 육체적, 지적

100:3.1 (1096.6) Religion is not a technique for attaining a static and blissful peace of mind; it is an impulse for organizing the soul for dynamic service. It is the enlistment of the totality of selfhood in the loyal service of loving God and serving man. Religion pays any price essential to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goal, the eternal prize. There is a consecrated completeness in religious loyalty which is superbly sublime. And these loyalties are socially effective and spiritually progressive.

100:3.2 (1096.7) To the religionist the word God becomes a symbol signifying the approach to supreme reality and the recognition of divine value. Human likes and dislikes do not determine good and evil; moral values do not grow out of wish fulfillment or emotional frustration.

100:3.3 (1096.8) In the contemplation of values you must distinguish between that which is value and that which has value. You must recognize the relation between pleasurable activities and their meaningful integration and enhanced realization on ever progressively higher and higher levels of human experience.

100:3.4 (1097.1) Meaning is something which experience adds to value; it is the appreciative consciousness of values. An isolated and purely selfish pleasure may connote a virtual devaluation of meanings, a meaningless enjoyment bordering on relative evil. Values are experiential when realities are meaningful and mentally associated, when such relationships are recognized and appreciated by mind.

100:3.5 (1097.2) Values can never be static; reality signifies change, growth. Change without growth, expansion of meaning and exaltation of value, is valueless — is potential evil. The greater the quality of cosmic adaptation, the more of meaning any experience possesses. Values are not conceptual illusions; they are real, but always they depend on the fact of relationships. Values are always both actual and potential — not what was, but what is and is to be.

100:3.6 (1097.3) The association of actuals and potentials equals growth,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values. But growth is not mere progress. Progress is always meaningful, but it is relatively valueless without growth. The supreme value of human life consists in growth of values, progress in meanings, and realization of the cosmic interrelatedness of both of these experiences. And such an experience is the equivalent of God-consciousness. Such a mortal, while not supernatural, is truly becoming superhuman; an immortal soul is evolving.

100:3.7 (1097.4) Man cannot cause growth, but he can supply favorable conditions. Growth is always

는 영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의식적이다. 사랑은 그렇게 성장한다; 그것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라나야만 한다. 진화는 성장의 조화우주 기법이다. 사회적인 성장은 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도덕적인 성장은 진보된 관리-행정으로 얻을 수 없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문화와 개인적 깊은 이해에서 유래되어야만 한다. 성장에 대해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개인성의 모든 전체 힘을 동원하는 것—살아있는 신앙—이다.

제 4 장. 성장의 문제들

종교적인 삶은 헌신적인 삶이며, 헌신적인 삶은 창조적인 삶, 기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다. 새로운 종교적 통찰력은 옛날의 열등한 반응 원형들 대신에 새롭고도 더 나은 반응 습관들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갈등들로부터 발생한다. 새로운 의미들은 오직 갈등 속에서만 일어나며; 갈등은 오직 우월한 의미들 속에 내포된 더 높은 가치들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에 직면하여서만 존속된다.

종교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심리적인 갈등과 영적인 동요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철학적 기준의 체제는 마음의 철학적 영역 속에 상당한 소란을 가져온다. 갈등이 없이는 위대한 자와 선한 자와 진실한 자 그리고 고결한 자를 위한 충성심이 발휘될 수 없다. 영적 선견지명의 정화(淨化)와 조화우주 통찰력의 증진에는 노력이 뒤따른다. 그리고 인간 지성은 현재적 실존이 갖는 비(非)영적 에너지들에 의해 생존되는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나태한 동물적 마음은 조화우주 문제 해결과 싸우는데 요구되는 노력에 반발한다.

그러나 개인성이 가진 혼의 힘을 사랑, 건강, 정신적 효과 그리고 행복에서의 통치에 따라 통합해보려는 과업에 있는 그 종교적 삶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체계, 마음 체계 그리고 영의 체계의 통일이라는 것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몸의 건강과 정신의 온전함은 많이 납득하지만, 그러나 행복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거의 없다. 최고의 행복은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영적 진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영구적인 즐거움, 모든 납득을 거치는 평화를 낳는다.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감각이 물체들의 실존들을 밝혀주며; 마음은 의미들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지만; 영적인 체험은 개별존재들에게 알생에 대한 참된 가치들을 계시해 준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차원들은 하느님의 최극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사심-없는 사랑 속에서 성취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가치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높은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이다. 너

unconscious, be it physical, intellectual, or spiritual. Love thus grows; it cannot be created, manufactured, or purchased; it must grow. Evolution is a cosmic technique of growth. Social growth cannot be secured by legislation, and moral growth is not had by improved administration. Man may manufacture a machine, but its real value must be derived from human culture and personal appreciation. Man's sole contribution to growth is the mobilization of the total powers of his personality — living faith.

4. PROBLEMS OF GROWTH

100:4.1 (1097.5) Religious living is devoted living, and devoted living is creative living, original and spontaneous. New religious insights arise out of conflicts which initiate the choosing of new and better reaction habits in the place of older and inferior reaction patterns. New meanings only emerge amid conflict; and conflict persists only in the face of refusal to espouse the higher values connoted in superior meanings.

100:4.2 (1097.6) Religious perplexities are inevitable; there can be no growth without psychic conflict and spiritual agitation. The organization of a philosophic standard of living entails considerable commotion in the philosophic realms of the mind. Loyalties are not exercised in behalf of the great, the good, the true, and the noble without a struggle. Effort is attendant upon clarification of spiritual vision and enhancement of cosmic insight. And the human intellect protests against being weaned from subsisting upon the nonspiritual energies of temporal existence. The slothful animal mind rebels at the effort required to wrestle with cosmic problem solving.

100:4.3 (1097.7) But the great problem of religious living consists in the task of unifying the soul powers of the personality by the dominance of LOVE. Health, mental efficiency, and happiness arise from the unification of physical systems, mind systems, and spirit systems. Of health and sanity man understands much, but of happiness he has truly realized very little. The highest happiness is indissolubly linked with spiritual progress. Spiritual growth yields lasting joy, peace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100:4.4 (1098.1) In physical life the senses tell of the existence of things; mind discovers the reality of meanings; but the spiritual experience reveals to the individual the true values of life. These high levels of human living are attained in the supreme love of God and in the unselfish love of man. If you love your fellow men, you must have discovered their values. Jesus loved men so much because he placed such a high value upon them. You can best discover values in your associates by

회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너희 관계적-연합들 속에서 가치들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짜증나게 한다면, 화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너는 그의 관점, 그러한 불유쾌한 행위를 일으키게 한 그에게 있는 이유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일단 너희 이웃을 납득하게 되면, 너희는 관대해 질 것이며, 이 관대함이 우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익어갈 것이다.

동굴 속에 살던 시대의 원시적인 너희 조상들 중의 하나에 대한 모습—키가 작고, 보기 흉하며, 불결하고, 으르렁거리는 사람 괴물이 선 채로 막 대기를 들어 올리고 정면을 사납게 쳐다보면서 중 오심과 악의에 가득 차 숨을 몰아쉬는—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라. 그러한 모양은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그림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살아있는 이 인간 앞에 송곳니가 날카롭게 나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그 사람 뒤에는 한 여인과 두 아이들이 있다. 너희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 종족 속에 있는 훌륭하고 고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임을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은 두 가지 그림 속에서 똑같은 주인공이다. 오직 두 번째 그림에서만 너희는 넓혀진 시야에 호감을 갖게 된다. 그 속에서 너희는 진화하는 필사자의 동기유발을 식별하게 된다. 그의 태도는 너희가 그를 납득하기 때문에 칭찬 받을 만한 것으로 바뀐다. 만일 너희가 너희 친구들의 동기들을 추측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얼마나 그들을 더 잘 납득할 수 있겠는가. 만일 너희가 너희 연관-동료들을 알 수만 있다면, 너희는 결국에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단순한 의지에서의 행동으로는 너희 동료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너희 이웃의 동기와 정서를 속속들이 납득함으로써만 태어난다. 너희가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매일 인간 존재 또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배우는 것이다. 너희가 매일 또는 매주마다 너희 동료들 중에 한 사람씩을 더 납득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이것이 너희 능력의 한계를 다한 것이라면, 너희는 너희 개인성을 확실하게 사회화 하고 있는 것이며 참되게 영성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전염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신이 총명하고 지혜로울 때에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욱 잘 전염된다. 그러나 오직 진정한 그리고 사심-없는 사랑만이 참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에 각 필사자가 역동적 애정의 초점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의 이 고마운 바이러스는 인류애의 정서적인 감정-흐름에 곧 바로 스며들어가, 모든 문명이 사랑으로 감싸이게 되기까지, 그리고 사람의 형제신분의 실현이 되기까지 것처럼 확장될 것이다.

제 5 장. 전향과 신비주의

세상은 길을 잃은 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신학적인 감각에 있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적 의미에 있어서 길을 잃었고, 좌절감

discovering their motivation. If someone irritates you, causes feelings of resentment, you should sympathetically seek to discern his viewpoint, his reasons for such objectionable conduct. If once you understand your neighbor, you will become tolerant, and this tolerance will grow into friendship and ripen into love.

100:4.5 (1098.2) In the mind's eye conjure up a picture of one of your primitive ancestors of cave-dwelling times — a short, misshapen, filthy, snarling hulk of a man standing, legs spread, club upraised, breathing hate and animosity as he looks fiercely just ahead. Such a picture hardly depicts the divine dignity of man. But allow us to enlarge the picture. In front of this animated human crouches a saber-toothed tiger. Behind him, a woman and two children. Immediately you recognize that such a picture stands for the beginnings of much that is fine and noble in the human race, but the man is the same in both pictures. Only, in the second sketch you are favored with a widened horizon. You therein discern the motivation of this evolving mortal. His attitude becomes praiseworthy because you understand him. If you could only fathom the motives of your associates, how much better you would understand them. If you could only know your fellows, you would eventually fall in love with them.

100:4.6 (1098.3) You cannot truly love your fellows by a mere act of the will. Love is only born of thoroughgoing understanding of your neighbor's motives and sentiments. It is not so important to love all men today as it is that each day you learn to love one more human being. If each day or each week you achieve an understanding of one more of your fellows, and if this is the limit of your ability, then you are certainly socializing and truly spiritualizing your personality. Love is infectious, and when human devotion is intelligent and wise, love is more catching than hate. But only genuine and unselfish love is truly contagious. If each mortal could only become a focus of dynamic affection, this benign virus of love would soon pervade the sentimental emotion-stream of humanity to such an extent that all civilization would be encompassed by love, and that would be the re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5. CONVERSION AND MYSTICISM

100:5.1 (1098.4) The world is filled with lost souls, not lost in the theologic sense but lost in the directional meaning, wandering about in confusion among the

을 느끼는 철학 시대의 이론들과 예배종파들 속에서 혼돈하여 방황하고 있다. 종교적 권한 대신에 하나의 삶의 철학을 세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 적다. (사회화된 종교의 상징들도 성장의 경로들로서 무시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독은 강이 아니다.)

종교적 성장의 진보는 침체로부터 갈등을 거쳐 조화-협동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확신하는 신앙으로, 혼돈 된 조화우주 의식으로부터 개인성의 통일으로, 현세에서의 목적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신성한 아들관계의 해방으로 이끈다.

최극의 이상들에 대한 충성심의 고백—하느님-의식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성장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위기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점에서 때때로 체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 사건 많은 날에 바로 그러한 갑작스럽고도 장엄한 회심을 체험하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그가 홀로 앉아 최종 진리에 대한 신비를 꿰뚫어보고자 하던 그 밤에 비슷한 체험을 하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체험들을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회심 없이 영적인 진보를 이룩한 참된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

소위 종교적인 회심이라 불리는 것들과 연관된 극적인 현상들 대부분은 본성에서는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근원이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심적 동원이, 영 달성을 향한 정신적 발돋움의 어떤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되었을 때는, 신성한 관념에 대한 충성에서 인간 동기의 완전함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내주하는 영이, 믿고 있는 필사자의 초(超)의식적 마음의 집중되고 성화되어 있는 목적에 동조하기 위하여, 갑자기 내려와-잡아채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종교적 회심은, 것처럼 지적이면서 영적 현상이 통합되는 그러한 체험이라서, 순수하게 심리적인 개입 위에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 넘는 요소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감정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회심이다; 느낌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충성심의 동기가 미완성(未完成)인 한, 회심의 체험은 그 정도에서 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실체가 혼합된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이론적 잠재의식 마음을 통합된 다른 지적 삶 속에 있는 실천적으로 작용하는 전체로 이해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초의식적 차원처럼 상승하는 지적 활동의 비슷하고 상승하는 영역, 내주 하는 영적 실존개체인 생각 조절자와 즉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든 심리적 고찰 속에 있는 큰 위험성은 색다른 꿈들을 포함하여 환상들과 소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인간 마

isms and cults of a frustrated philosophic era. Too few have learned how to install a philosophy of living in the place of religious authority. (The symbols of socialized religion are not to be despised as channels of growth, albeit the river bed is not the river.)

100:5.2 (1098.5) The progression of religious growth leads from stagnation through conflict to co-ordination, from insecurity to undoubting faith, from confusion of cosmic consciousness to unification of personality, from the temporal objective to the eternal, from the bondage of fear to the liberty of divine sonship.

100:5.3 (1099.1)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professions of loyalty to the supreme ideals — the psychic, emotional, and spiritual awareness of God-consciousness — may be a natural and gradual growth or may sometimes be experienced at certain junctures, as in a crisis. The Apostle Paul experienced just such a sudden and spectacular conversion that eventful day on the Damascus road. Gautama Siddhartha had a similar experience the night he sat alone and sought to penetrate the mystery of final truth. Many others have had like experiences, and many true believers have progressed in the spirit without sudden conversion.

100:5.4 (1099.2) Most of the spectacular phenomena associated with so-called religious conversions are entirely psychologic in nature, but now and then there do occur experiences which are also spiritual in origin. When the mental mobilization is absolutely total on any level of the psychic upreach toward spirit attainment, when there exists perfection of the human motivation of loyalties to the divine idea, then there very often occurs a sudden down-grasp of the indwelling spirit to synchronize with the concentrated and consecrated purpose of the superconscious mind of the believing mortal. And it is such experiences of unified intellectual and spiritual phenomena that constitute the conversion which consists in factors over and above purely psychologic involvement.

100:5.5 (1099.3) But emotion alone is a false conversion; one must have faith as well as feeling. To the extent that such psychic mobilization is partial, and in so far as such human-loyalty motivation is incomplete, to that extent will the experience of conversion be a blended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reality.

100:5.6 (1099.4) If one is disposed to recognize a theoretical subconscious mind as a practical working hypothesis in the otherwise unified intellectual life, then, to be consistent, one should postulate a similar and corresponding realm of ascending intellectual activity as the superconscious level, the zone of immediate contact with the indwelling spirit entity, the Thought Adjuster. The great danger in all these psychic

음을 향한 신성한 교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성한 존재들이 하느님을 아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나타내어 온 것은, 그들의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병적인 환상들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들을 무시한 상태에서였다.

전환을-추구하는 것과 대조해서, 생각 조절자와의 접촉이 가능할, 모른시아 지대에 더욱 잘 접근하는 길은 살아있는 신앙과 진지한 경배,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사심-없는 기도를 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인간 마음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기억들이 용솟음쳐 오르는 것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신성한 계시와 영이 인도하는 것으로 잘못 다루어져 왔다.

종교적 백일몽의 습관적인 실천 관행과 연관되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비주의는 하나의 실제 기괴의 기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때로 참된 영적 교제의 수단이 되어 왔다. 바쁜 삶의 현장으로부터 짧은 시기동안 물러나 있는 것이 심각하게 위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성의 장기간의 고립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상적 의식에서의 황홀경과 같은 상태가 종교적인 체험으로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신비적인 상태의 특징은, 비교적 수동적 지능 위에서 작용하는, 주의가 집중된 상태에서의 생생한 섬과 함께 하는 의식의 확산이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접촉의 지대, 즉 초의식의 방향으로 들어가 기보다는 오히려 잠재의식을 향하여 의식을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분리작용을 비정상적인 정신적 현시활동의 차원까지 옮겨왔다.

영적인 명상의 보다 더 건전한 태도는 사려 깊은 경배와 감사기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육체 속에 있었던 예수의 일생 중에서 후기에 발생하였던 것과 같은, 자기 생각 조절자와의 직접적인 교제는 소위 신비적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신비적인 교제의 개시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그러한 심리 상태들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신비상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촉진된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 금식, 심리적 분열, 깊은 심미적 체험, 생생한 성적 충동, 두려움, 불안, 분노, 격렬한 춤이다. 그러한 예비행사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물질적 것의 대부분은 잠재의식 마음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 조건들이 신비적 현상들에게 아무리 호의적이더라도, 나사렛 예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납득해야만 한다. 예수는 잠재의식적 망상 또는 초(超)의식적 환상을 이용하지 않으셨다.

speculations is that visions and other so-called mystic experiences, along with extraordinary dreams, may be regarded as divine communications to the human mind. In times past, divine beings have revealed themselves to certain God-knowing persons, not because of their mystic trances or morbid visions, but in spite of all these phenomena.

100:5.7 (1099.5) In contrast with conversion-seeking, the better approach to the morontia zones of possible contact with the Thought Adjuster would be through living faith and sincere worship, wholehearted and unselfish prayer. Altogether too much of the uprush of the memories of the unconscious levels of the human mind has been mistaken for divine revelations and spirit leadings.

100:5.8 (1099.6) There is great danger associated with the habitual practice of religious daydreaming; mysticism may become a technique of reality avoidance, albeit it has sometimes been a means of genuine spiritual communion. Short seasons of retreat from the busy scenes of life may not be seriously dangerous, but prolonged isolation of personality is most undesirable.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 trancelike state of visionary consciousness be cultivated as a religious experience.

100:5.9 (1099.7)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stical state are diffusion of consciousness with vivid islands of focal attention operating on a comparatively passive intellect. All of this gravitates consciousness toward the subconscious rather than in the direction of the zone of spiritual contact, the superconscious. Many mystics have carried their mental dissociation to the level of abnormal mental manifestations.

100:5.10 (1100.1) The more healthful attitude of spiritual meditation is to be found in reflective worship and in the prayer of thanksgiving. The direct communion with one's Thought Adjuster, such as occurred in the later years of Jesus' life in the flesh,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se so-called mystical experiences. The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initiation of mystic communion are indicative of the danger of such psychic states. The mystic status is favored by such things as: physical fatigue, fasting, psychic dissociation, profound aesthetic experiences, vivid sex impulses, fear, anxiety, rage, and wild dancing. Much of the material arising as a result of such preliminary preparation has its origin in the subconscious mind.

100:5.11 (1100.2) However favorable may have been the conditions for mystic phenomena, it should be clearly understood that Jesus of Nazareth never resorted to such methods for communion with the Paradise Father. Jesus had no subconscious delusions or superconscious illusions.

제 6 장. 종교적인 삶의 징후들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방법상에서 분명하게 다른 반면, 동기에 있어서는 매우 비슷하다. 종교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명확한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참된 종교는 그 종교인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최극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게 전심으로 제공하는 헌신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의 뚜렷한 특징은: 최극 가치들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충성심과 전심으로의 헌신이다. 최극 가치에 대한 이 종교적 헌신은 종교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머니의 자기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서 그리고 비종교인이 지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이는 열렬한 충성심 속에 나타난다.

그 종교인이 용납한 최극의 가치는 열등한 것일 수 있고 또는 심지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교적이다. 종교는 최극의 것으로 유지되는 그 가치가 정말로 참된 영적 가치를 갖는 조화우주 실체가 되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참되다.

종교적인 충동에 대한 인간 반응의 표시들에는 숭고함과 웅장함의 본질특성들이 있다. 진지한 종교인은 우주의 시민 됨을 의식하며 초인간적 힘의 근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우월한 고상한 친교에 소속된다는 확신으로 감격하고 격려를 받는다. 자아-가치에 대한 의식은 가장 높은 우주적 목표들—최극의 목표들—을 향한 탐색의 충동에 의해서 증강된다.

자아는 높아지는 자아-단련을 강요하고 감성적 갈등을 줄이게 하는, 그리고 필사자 삶을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포용하는 동기의 흥미를 일으키는 충동에 몸을 맡기어 왔다. 인간적 한계들에 대한 과민한 인식은, 가장 높은 우주적 그리고 초우주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인 결정과 영적인 열망에 연관되어서, 필사자의 결점들에 대한 자연 본성적 의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초인간적 이상들의 달성에 대한 열정적인 이 분투는 항상 증가하는 인내와 자제심과 끈기 그리고 관대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며, 봉사하는 일생이다. 순전히 일시적이고 사소한 많은 것에서 벗어나는 종교인의 초연함은 결코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유머 감각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 실존으로부터 아무 것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삶의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들을 더해 준다; 새로운 유형의 열정, 열의 그리고 용기를 발생시킨다. 그것이 십자군 전사의 영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만일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 충성심에서의 평범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충실한 헌신에

6. MARKS OF RELIGIOUS LIVING

100:6.1 (1100.3) Evolutionary religions and revelatory religions may differ markedly in method, but in motive there is great similarity. Religion is not a specific function of life; rather is it a mode of living. True religion is a wholehearted devotion to some reality which the religionist deems to be of supreme value to himself and for all mankind. And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all religions are: unquestioning loyalty and wholehearted devotion to supreme values. This religious devotion to supreme values is shown in the relation of the supposedly irreligious mother to her child and in the fervent loyalty of nonreligionists to an espoused cause.

100:6.2 (1100.4) The accepted supreme value of the religionist may be base or even false, but it is nevertheless religious. A religion is genuine to just the extent that the value which is held to be supreme is truly a cosmic reality of genuine spiritual worth.

100:6.3 (1100.5) The marks of human response to the religious impulse embrace the qualities of nobility and grandeur. The sincere religionist is conscious of universe citizenship and is aware of making contact with sources of superhuman power. He is thrilled and energized with the assurance of belonging to a superior and ennobled fellowship of the sons of God. The consciousness of self-worth has become augmented by the stimulus of the quest for the highest universe objectives — supreme goals.

100:6.4 (1100.6) The self has surrendered to the intriguing drive of an all-encompassing motivation which imposes heightened self-discipline, lessens emotional conflict, and makes mortal life truly worth living. The morbid recognition of human limitations is changed to the natural consciousness of mortal shortcomings, associated with moral determination and spiritual aspiration to attain the highest universe and superuniverse goals. And this intense striving for the attainment of supermortal ideals is alway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patience, forbearance, fortitude, and tolerance.

100:6.5 (1100.7) But true religion is a living love, a life of service. The religionist's detachment from much that is purely temporal and trivial never leads to social isolation, and it should not destroy the sense of humor. Genuine religion takes nothing away from human existence, but it does add new meanings to all of life; it generates new types of enthusiasm, zeal, and courage. It may even engender the spirit of the crusader, which is more than dangerous if not controlled by spiritual insight and loyal devotion to the commonplace social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종교적인 삶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역동적이고 장엄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모든 인간들을 납득시키는, 모든 의심과 혼란의 부재(不在)를 나타내는 조화우주 평형이다. 그러한 영적 안정성의 차원들은 실망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그러한 종교인들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에 있는 것도 장차 도래할 것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다.

최극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리고 궁극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승리를 거두는 영광의 실현과 연관된, 어떤 안전감에 대한 느낌이 있다.

심지어 진화 종교도 충성심과 장대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참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훌륭하다. 증대된 영적 선견지명에 대한 새로운 충성심은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헌신, 봉사와 교제를 창출한다; 사회적인 전망을 증진시킨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킨다.

진화된 종교와 계시된 종교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는, 순전히 체험적인 인간적 지혜에 덧붙여진 신성한 지혜의 새로운 본질특성이다. 그러나 신성한 지혜와 우주적인 통찰력의 증가되는 증여를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종교들 속에서 갖는 체험과 그 종교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제 7 장. 종교적인 삶의 절정

유란시아에 있는 보통 수준의 필사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육체 속에 머무른 동안 달성하셨던 성격의 높은 이상에 다다르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예수의 개인성의 완전해진 계통들을 따라서 하나의 강력하고 통일된 개인성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필사자 신자들에게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주(主)의 개인성의 독특한 모습은 그것의 완전성보다는 오히려 그 균형, 그 섬세함 그리고 지극하고 치우치지 않은 통일성이었다. 예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소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는자들 앞에서 계신 주(主)를 향하여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였던 본보기에서 볼 수 있다.

예수의 어김없는 친절이 필사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지만, 그의 건장하고 힘찬 성격은 그의 추종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였다; 그 어떤 아무런 위선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는 허식이 없었다; 항상 매우 신실하게 진

obligations of human loyalties.

100:6.6 (1101.1) One of the most amazing earmarks of religious living is that dynamic and sublime peace, that peace which 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that cosmic poise which betokens the absence of all doubt and turmoil. Such levels of spiritual stability are immune to disappointment. Such religionists are like the Apostle Paul, who said: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100:6.7 (1101.2) There is a sense of security, associ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riumphing glory, resident in the consciousness of the religionist who has grasped the reality of the Supreme, and who pursues the goal of the Ultimate.

100:6.8 (1101.3) Even evolutionary religion is all of this in loyalty and grandeur because it is a genuine experience. But revelatory religion is *excellent* as well as genuine. The new loyalties of enlarged spiritual vision create new levels of love and devotion, of service and fellowship; and all this enhanced social outlook produces an enlarged consciousnes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100:6.9 (1101.4)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evolved and revealed religion is a new quality of divine wisdom which is added to purely experiential human wisdom. But it is experience in and with the human religions that develops the capacity for subsequent reception of increased bestowals of divine wisdom and cosmic insight.

7. THE ACME OF RELIGIOUS LIVING

100:7.1 (1101.5) Although the average mortal of Urantia cannot hope to attain the high perfection of character which Jesus of Nazareth acquired while sojourning in the flesh, it is altogether possible for every mortal believer to develop a strong and unified personality along the perfected lines of the Jesus personality. The unique feature of the Master's personality was not so much its perfection as its symmetry, its exquisite and balanced unification. The most effective presentation of Jesus consists in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one who said, as he gestured toward the Master standing before his accusers, “Behold the man!”

100:7.2 (1101.6) The unfailing kindness of Jesus touched the hearts of men, but his stalwart strength of character amazed his followers. He was truly sincere; there was nothing of the hypocrite in him. He was free from affectation; he

심이었다. 그는 결코 걸치레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었으며, 가식을 부리는 것에 안주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진리로 사셨다. 그는 진리 그 자체였다. 그는 당대의 사람만을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강요되었었고, 그에 대한 진지함이 때때로 고통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였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모든 진리에 충성을 바쳤다.

그러나 주(主)는 너무나 이성적이었고, 너무나 가까이할 수 있는 분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것처럼 성스럽게된 상식으로 특징을 지니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사명활동에서 너무나도 실천적이였다. 그는 기형적이고 변덕스럽고 괴벽스러운 모든 경향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다. 그는 변덕스럽거나 별나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셨다.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속에는 항상 정교한 분별이 있었으며 그것은 예의를 갖춘 비범한 감각이 따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아들은 항상 매우 침착한 개인성을 유지하셨다. 심지어는 그의 적들도 그에게 건전한 존중을 나타냈다; 그들은 그의 현존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다. 예수는 신성한 열심히 넘치게 채워져 계셨지만, 광신적으로 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감성적으로 활발하셨지만 경솔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셨지만 항상 실천적이였다. 그는 삶의 실제들과 솔직하게 마주하셨으나, 흥미 없거나 둔감하신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용감하셨지만 무모하지 않았고; 세심하시면서도 결코 심약하지 않으셨다. 그는 동정심이 깊으셨지만 정서에 빠지지 않으셨으며; 독특하셨지만 괴상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경건하셨지만 경건한 척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매우 침착하셨는데 이는 그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기원성은 억압받지 않았다. 그는 전통에 묶이거나 제한된 인습에 젖음으로써 방해받는 일이 없으셨다. 그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였으며 절대적 권한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의 장엄한 기원성은 그로 하여금 그보다 전에 그리고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의 보석들을 경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기원적인 것은 두려움과 희생 제물 대신에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신 것이었다.

예수는 매우 넓은 견해를 갖고 계셨다. 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간곡히 타이르셨다. 그에게는 편협함이 없었다. 그의 동정적인 가슴은 모든 인류 그리고 우주까지라도 포용하였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항상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다.

예수께 있어서는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탁월하게 신뢰하셨다. 그는 어린아이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그의 신앙은 완전하였지만 무례한 적이

was always so refreshingly genuine. He never stooped to pretense, and he never resorted to shamming. He lived the truth, even as he taught it. He was the truth. He was constrained to proclaim saving truth to his generation, even though such sincerity sometimes caused pain. He was unquestioningly loyal to all truth.

100:7.3 (1101.7) But the Master was so reasonable, so approachable. He was so practical in all his ministry, while all his plans were characterized by such sanctified common sense. He was so free from all freakish, erratic, and eccentric tendencies. He was never capricious, whimsical, or hysterical. In all his teaching and in everything he did there was always an exquisite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an extraordinary sense of propriety.

100:7.4 (1102.1) The Son of Man was always a well-poised personality. Even his enemies maintained a wholesome respect for him; they even feared his presence. Jesus was unafraid. He was surcharged with divine enthusiasm, but he never became fanatical. He was emotionally active but never flighty. He was imaginative but always practical. He frankly faced the realities of life, but he was never dull or prosaic. He was courageous but never reckless; prudent but never cowardly. He was sympathetic but not sentimental; unique but not eccentric. He was pious but not sanctimonious. And he was so well-poised because he was so perfectly unified.

100:7.5 (1102.2) Jesus' originality was unstifled. He was not bound by tradition or handicapped by enslavement to narrow conventionality. He spoke with undoubted confidence and taught with absolute authority. But his superb originality did not cause him to overlook the gems of truth in the teachings of his predecessors and contemporaries. And the most original of his teachings was the emphasis of love and mercy in the place of fear and sacrifice.

100:7.6 (1102.3) Jesus was very broad in his outlook. He exhorted his follower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peoples. He was free from all narrow-mindedness. His sympathetic heart embraced all mankind, even a universe. Always his invitation was, “Whosoever will, let him come.”

100:7.7 (1102.4) Of Jesus it was truly said, “He trusted God.” As a man among men he most sublimely trusted the Father in heaven. He trusted his Father as a little child trusts his earthly parent. His faith was perfect but never presumptuous. No matter how cruel nature might appear to be or how indifferent to man's welfare on earth, Jesus never

결코 없었다. 잔인한 자연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든 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복지에 관계가 없을지라도, 예수는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다. 그는 실망을 당할 염려가 없었으며 박해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그는 외견상의 실패에 의해서 흔들리는 법이 없으셨다.

그는 사람들을 형제로서 사랑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이 타고난 자질과 후천적인 본질특성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셨다. “그는 부지런히 선(善)을 행하셨다.”

예수는 유별나게 쾌활한 사람이셨지만,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셨다. 그가 늘 훈계하신 말씀은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항상 측은한 심정으로 이해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있어서 숭고하게 확고하였고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항상 진실하셨다.

주(主)는 언제나 관대하셨다. 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욱 축복이 있다”고 말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나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한없이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낭비적이거나 지나치신 적이 없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셨다.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솔직하면서도 항상 친절하셨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숨김이 없었지만, 항상 친근하셨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죄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거리낌 없이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솔직함 전체에 있어서 그는 틀림없이 공정하셨다.

예수는 가끔 인간적인 슬픔의 잔을 깊이 들이마시기도 하였지만, 변함없이 쾌활하셨다. 그는 실존하는 실체들에 대담하게 대면하셨고, 더욱이 왕국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열심을 통제했다; 그것이 그를 통제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아낌없이 전념하셨다. 이러한 신성한 열정이 비(非)영적인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지켜보고 있던 온 우주는 그를 온전한 사람의 본보기로 그리고 영적 삶에서의 높은 기준에 대한 최극의 필사자 헌신의 원형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제된 열심은 확전염되었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의 신성한 낙관주의를 공유하는 것에 감히게 되었다.

이 갈릴리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기쁨의 혼이었다. 그는 “기쁨을 향유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러나 의무가 요구될 때, 그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기꺼이 용감하게 걸으려 하셨다. 그는 기쁨에 찬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겸손하셨다.

faltered in his faith. He was immune to disappointment and impervious to persecution. He was untouched by apparent failure.

100:7.8 (1102.5) He loved men as brothers,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how they differed in innate endowments and acquired qualities. “He went about doing good.”

100:7.9 (1102.6) Jesus was an unusually cheerful person, but he was not a blind and unreasoning optimist. His constant word of exhortation was, “Be of good cheer.” He could maintain this confident attitude because of his unswerving trust in God and his unshakable confidence in man. He was always touchingly considerate of all men because he loved them and believed in them. Still he was always true to his convictions and magnificently firm in his devo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100:7.10 (1102.7) The Master was always generous. He never grew weary of saying,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Said he,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And yet, with all of his unbounded generosity, he was never wasteful or extravagant. He taught that you must believe to receive salvation. “For every one who seeks shall receive.”

100:7.11 (1102.8) He was candid, but always kind. Said he,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He was frank, but always friendly. He was outspoken in his love for the sinner and in his hatred for sin. But throughout all this amazing frankness he was unerringly fair.

100:7.12 (1102.9) Jesus was consistently cheerful, notwithstanding he sometimes drank deeply of the cup of human sorrow. He fearlessly faced the realities of existence, yet was he filled with enthusiasm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he controlled his enthusiasm; it never controlled him. He was unreservedly dedicated to “the Father’s business.” This divine enthusiasm led his unspiritual brethren to think he was beside himself, but the onlooking universe appraised him as the model of sanity and the pattern of supreme mortal devotion to the high standards of spiritual living. And his controlled enthusiasm was contagious; his associates were constrained to share his divine optimism.

100:7.13 (1103.1) This man of Galilee was not a man of sorrows; he was a soul of gladness. Always was he saying,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But when duty required, he was willing to walk courageously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He was gladsome but at the same time

그의 용기는 그의 참을성에 못지 않았다. 조금하듯 행동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그는 오직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곤 하셨다. 그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숭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에서는 자주 분개하였고 죄를 참지 못하셨다. 그는 땅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번영에 해를 끼치는 것에 저항하려고 자주 강력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의 분개가 죄인에 대한 분노로 이끈 적은 결코 없었다.

그의 용기는 뛰어났지만, 그는 결코 무모한 적은 없었다. 그의 표어는 “두려워 말라”였다. 그의 용감성은 드높았고, 그의 용기는 자주 영웅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사려 깊은 분별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성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것은 신앙에서 탄생된 용기였고, 맹목적 추측에서의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는 참으로 용감하였지만 호기를 부린 적은 결코 없었다.

주(主)는 존경의 원형들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의 그릇된 경배조차도 존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전통에 대해 공격하거나, 잘못된 인간의 믿음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가로 막지는 않았다. 그는 참된 성스러움은 존경하였지만, 자기 동료들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 확신하겠느냐?”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예수는 자신이 선했기 때문에 위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들과 형제우에 관계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온화하고 겸손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우주의 완성된 사람이었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를 자발적으로 주(主)라고 불렀다.

예수는 완전하게 통합된 개인성이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오늘날도 필사자의 체험을 통합하고 인간의 수고들을 조화-협동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일생을 통합하고, 성격을 고귀하게 하며, 체험을 단순화하신다. 그는 인간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높이 올리고, 변환시키고 그리고 변모시킨다. 다음의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체이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있다;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humble.

100:7.14 (1103.2) His courage was equaled only by his patience. When pressed to act prematurely, he would only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He was never in a hurry; his composure was sublime. But he was often indignant at evil, intolerant of sin. He was often mightily moved to resist that which was inimical to the welfare of his children on earth. But his indignation against sin never led to anger at the sinner.

100:7.15 (1103.3) His courage was magnificent, but he was never foolhardy. His watchword was, “Fear not.” His bravery was lofty and his courage often heroic. But his courage was linked with discretion and controlled by reason. It was courage born of faith, not the recklessness of blind presumption. He was truly brave but never audacious.

100:7.16 (1103.4) The Master was a pattern of reverence. The prayer of even his youth bega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He was even respectful of the faulty worship of his fellows. But this did not deter him from making attacks on religious traditions or assaulting errors of human belief. He was reverential of true holiness, and yet he could justly appeal to his fellows, saying, “Who among you convicts me of sin?”

100:7.17 (1103.5) Jesus was great because he was good, and yet he fraternized with the little children. He was gentle and unassuming in his personal life, and yet he was the perfected man of a universe. His associates called him Master unbidden.

100:7.18 (1103.6) Jesus was the perfectly unified human personality. And today, as in Galilee, he continues to unify mortal experience and to coordinate human endeavors. He unifies life, ennobles character, and simplifies experience. He enters the human mind to elevate, transform, and transfigure it. It is literally true: “If any man has Christ Jesus within him,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ing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ing new.”

100:7.19 (1103.7)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1 편 종교의 실제 본성

⇨ 100

유랜시아 책

102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1 편 종교의 실제 본성

섹션

소개

- 제 1 장. 참 종교
- 제 2 장. 종교의 사실
- 제 3 장. 종교의 특징들
- 제 4 장. 계시의 한계
- 제 5 장. 계시에 의해 확대된 종교
- 제 6 장. 진보적인 종교 체형
- 제 7 장. 종교의 개인적 철학
- 제 8 장. 신앙과 믿음
- 제 9 장. 종교와 도덕
- 제 10 장. 사람의 해방자인 종교

PAPER 101

THE REAL NATURE OF RELIGION

SECTIONS

Introduction

- 1. True Religion
- 2. The Fact of Religion
- 3.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n
- 4. The Limitations of Revelation
- 5. Religion Expanded by Revelation
- 6. Progressive Religious Experience
- 7.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 8. Faith and Belief
- 9. Religion and Morality
- 10. Religion as Man's Liberator

소개

하나의 인간 체험으로서, 종교는 진화하는 야만인의 원시적 두려움의 노예 상태로부터,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관계를 당당하게 인식하는 문명화된 필사자의 숭고하고도 웅장한 신앙 해방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다.

종교는 진보하는 사회 진화에서의 향상된 윤리와 도덕의 조상이다. 그러나 종교의 외적 그리고 사회적 현시활동이 인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추진력으로써 강력하게 영향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종교는 단순한 하나의 도덕적 활동이 아니다. 항상 종교가 사람의 진화하는 자연본성에서의 영감이지만, 그것이 그 진화의 비결은 아니다.

개인성의 신념-신앙, 곧 종교는 믿음 없는 물질적 마음 안에서 잉태되는 논리, 피상적으로 모순되는 절망의 논리를 항상 극복한다. 그곳에는 실제로 참되고 순수한 내적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주는 참된 빛”이다. 그리고 이 영 인도는 인간 양심의 윤리적

INTRODUCTION

101:0.1 (1104.1) RELIGION, as a human experience, ranges from the primitive fear slavery of the evolving savage up to the sublime and magnificent faith liberty of those civilized mortals who are superbly conscious of sonship with the eternal God.

101:0.2 (1104.2) Religion is the ancestor of the advanced ethics and morals of progressive social evolution. But religion, as such, is not merely a moral movement, albeit the outward and social manifestations of religion are mightily influenced by the ethical and moral momentum of human society. Always is religion the inspiration of man's evolving nature, but it is not the secret of that evolution.

101:0.3 (1104.3) Religion, the conviction-faith of the personality, can always triumph over the superficially contradictory logic of despair born in the unbelieving material mind. There really is a true and genuine inner voice,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And

자극과는 다르다. 종교적 확신의 느낌은 감정적인 느낌 이상(以上)이다. 종교의 확신은 마음의 이성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의 논리를 초월한다. 종교는 신앙, 신뢰, 그리고 확신이다.

this spirit leading is distinct from the ethical prompting of human conscience. The feeling of religious assurance is more than an emotional feeling. The assurance of religion transcends the reason of the mind, even the logic of philosophy. Religion is faith, trust, and assurance.

제 1 장. 참 종교

참된 종교는 자연적 증거들에 의해 이치를 밝히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신념의 체계가 아니며, 신비주의의 낭만적 신봉자들에 의해서만 즐기게 되는 황홀경의 설명할 수 없는 느낌에서의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다. 종교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지만, 내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성적이다. 종교는 인간 철학의 논리로부터 유래되지 않지만, 필사의 체험으로서는 전적으로 논리적이다. 종교는 진화적으로 기원된 도덕적 존재의 의식 안에서 신성에 대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실체들과 가지는 참된 체험, 아직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이루는 영적 만족의 실현을 나타낸다.

생각 조절자는 그것을 통하여 자아-표현을 성취하는 아무런 특별한 기능구조가 없다; 종교적 감정들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아무런 신비한 종교적 기능도 없다. 이들 체험은 필사자 마음의 자연적으로 예정되어있는 기능구조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항상 내주하는 물질적 마음과 직접적인 교통에 종사하는 데에서의, 조절자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들어있다.

신성한 영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영성화된 사고의 영역 안에서 필사 사람과 접촉을 이룬다. 너희를 하느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느낌들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들이다. 신성한 본성은 아마도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감지될 것이다. 그러나 내주 하는 조절자의 음성을 듣는, 실제로 하느님을 식별하는 마음은 순수 마음이다. “성스러움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러한 모든 내적 그리고 영적 교제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종교적 체험들은, 조절자와 진리의 영이 하느님의 진화하는 아들의 관념과 이상, 통찰력과 영적 분투의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작용할 때, 이들의 병합된 기능에 의하여 사람 마음 위에 만들어진 감동으로부터 생긴 결과이다.

그래서 종교는 보는 것이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나 통찰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번영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나 어떤 독특한 체험을 찾아내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 속에 있는 새롭고도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 내는 것에 들어있다. 최고의 종교적 체험은 믿음, 전통, 권위에서의 미리 행하는 활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종교는

1. TRUE RELIGION

101:1.1 (1104.4) True religion is not a system of philosophic belief which can be reasoned out and substantiated by natural proofs, neither is it a fantastic and mystic experience of indescribable feelings of ecstasy which can be enjoyed only by the romantic devotees of mysticism. Religion is not the product of reason, but viewed from within, it is altogether reasonable. Religion is not derived from the logic of human philosophy, but as a mortal experience it is altogether logical. Religion is the experiencing of divinity in the consciousness of a moral being of evolutionary origin; it represents true experience with eternal realities in time, the realization of spiritual satisfactions while yet in the flesh.

101:1.2 (1104.5) The Thought Adjuster has no special mechanism through which to gain self-expression; there is no mystic religious faculty for the reception or expression of religious emotions. These experiences are made available through the naturally ordained mechanism of mortal mind. And therein lies one explanation of the Adjuster's difficulty in engaging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material mind of its constant indwelling.

101:1.3 (1104.6) The divine spirit makes contact with mortal man, not by feelings or emotions, but in the realm of the highest and most spiritualized thinking. It is your *thoughts*, not your feelings, that lead you Godward. The divine nature may be perceived only with the eyes of the mind. But the mind that really discerns God, hears the indwelling Adjuster, is the pure mind. “Without holiness no man may see the Lord.” All such inner and spiritual communion is termed spiritual insight. Such religious experiences result from the impress made upon the mind of man by the combined operations of the Adjuster and the Spirit of Truth as they function amid and upon the ideas, ideals, insights, and spirit strivings of the evolving sons of God.

101:1.4 (1105.1) Religion lives and prospers, then, not by sight and feeling, but rather by faith and insight. It consists not in the discovery of new facts or in the finding of a unique experience, but rather in the discovery of new and spiritual *meanings* in facts already well known to mankind. The highest religious experience is not dependent on prior acts of belief, tradition, and authority; neither is religion the offspring of sublime feelings and purely mystical emotions. It is, rather, a profoundly deep

숭고한 느낌과 순수하게 신비적 감정의 소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주하는 영영향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의 심오하게 깊고 실제적인 체험이며, 그러한 체험을 정신에 관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순수하게 개인적 체험의 실제성으로 하느님을 믿고있는 그러한 실제성을 체험하는 체험이다.

종교가 물질적 우주론의 합리적 고찰에서의 산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체험 속에 시작되는 전적으로 합리적 통찰력의 창조이다. 종교는, 그것이 언제든지 순수하게 지적 이성적 철학적 논리의 형식으로 정의되거나 표현될 수 없으며 다소 신비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고립된 깊은 사색에 의해서도 잉태되지 않는다. 참된 종교의 싹들은 사람의 도덕적 의식의 권역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에-굴주된 필사자 마음속에서 하느님을-게시하는 생각 조절자의 현존에 따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인간 개인성의 기능, 곧 사람의 영적 통찰력의 성장 안에서 계시된다.

신앙은 도덕적인 통찰력을 가치에 대한 양심적 분별력과 연합하며, 선재(先在)하는 진화적인 의무에서의 감각을 참된 종교의 계통으로 완성시킨다. 종교의 체험은 결국에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의식으로 그리고 믿고 있는 개인성에서의 생존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으로 귀결된다.

그리하여 종교적 열망과 영적 충동이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하느님을 믿기를 원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연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반드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몹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자연본성과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화적 의무에서의 감각 그리고 계시에서의 조명의 결과로 생기는 책무들은, 사람의 도덕적 자연본성 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어서, 그가 하느님을 믿지 않을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마음의 위치와 혼의 태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한다. 그러한 깨우치고 기강 훈련된 개별존재에서의 더욱 높은 지혜, 철학을 뛰어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그의 선함을 불신하는 것이 인간 마음과 혼속에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깊은 것—신성한 조절자—에 대한 진실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리라고 가르친다.

제 2 장. 종교의 사실

종교의 사실은 합리적인 보통의 인간 존재들의 종교적 체험 안에 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오직 이 의미에서, 그 안에서 종교가 과학적인 것, 또는 심지어 심리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계시가 계시라는 증명은 바로 이와 똑같은 인간 체험에서의 사실이다; 그것은 길으로 보기에 다양하게 갈라진 자연 과학과 종교 신학을, 하나의 일

and actual experience of spiritual communion with the spirit influences resident within the human mind, and as far as such an experience is definable in terms of psychology, it is simply the experience of experiencing the reality of believing in God as the reality of such a purely personal experience.

101:1.5 (1105.2) While religion is not the product of the rationalistic speculations of a material cosmology, it is, nonetheless, the creation of a wholly rational insight which originates in man's mind-experience. Religion is born neither of mystic meditations nor of isolated contemplations, albeit it is ever more or less mysterious and always indefinable and inexplicable in terms of purely intellectual reason and philosophic logic. The germs of true religion originate in the domain of man's moral consciousness, and they are revealed in the growth of man's spiritual insight, that faculty of human personality which accrues as a consequence of the presence of the God-revealing Thought Adjuster in the God-hungry mortal mind.

101:1.6 (1105.3) Faith unites moral insight with conscientious discriminations of values, and the pre-existent evolutionary sense of duty completes the ancestry of true religion. The experience of religion eventually results in the certain consciousness of God and in the undoubted assurance of the survival of the believing personality.

101:1.7 (1105.4) Thus it may be seen that religious longings and spiritual urges are not of such a nature as would merely lead men to *want* to believe in God, but rather are they of such nature and power that men are profoundly impressed with the conviction that they *ought* to believe in God. The sense of evolutionary duty and the obligations consequent upon the illumination of revelation make such a profound impression upon man's moral nature that he finally reaches that position of mind and that attitude of soul where he concludes that he *has no right not to believe in God*. The higher and superphilosophic wisdom of such enlightened and disciplined individuals ultimately instructs them that to doubt God or distrust his goodness would be to prove untrue to the *real*est and *deepest* thing within the human mind and soul — the divine Adjuster.

2. THE FACT OF RELIGION

101:2.1 (1105.5) The fact of religion consists wholly i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rational and average human beings. And this is the only sense in which religion can ever be regarded as scientific or even psychological. The proof that revelation is revelation is this same fact of human experience: the fact that revelation does synthesize the

관되고 논리적인 우주 철학, 하나의 조화-협동되고 단절되지 않은 과학과 종교 모두에 대한 해석으로 합성하고, 그리하여 무한자가 어떻게 물질 안에, 마음과 함께, 그리고 영 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지 알리고 갈망하는 저들 질문하는 필사자 마음에서의 인간 체험에 대답이 되는 마음의 조화와 영의 만족을 창출한다.

이성은 과학의 수단이다; 신앙은 종교의 수단이다; 논리는 철학이 시도하는 기법이다. 계시는 마음의 중재에 의한 물질과 영의 실체와 관계들에 대한 이해에서 합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모른시아 관점의 부재(不在)를 보상한다. 그리고 참된 계시는 결코 과학을 부자연적인 것으로,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또는 철학을 비논리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성은, 과학에서의 연구를 거쳐, 자연을 통하여 첫째 원인에게 되돌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지만, 과학의 첫째 원인을 구원의 하느님으로 변환시키는 데에는 종교적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적 통찰력의 확증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의 생존을 양육하는 하느님을 믿는 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치들이 있다:

1. 인간 체험, 개인적 확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에 의해서 시작된, 어떻게든 등록된 희망과 신뢰.

2. 진리의 계시. 진리의 영의 직접적인 개인적 사명활동에 의하거나, 신성한 아들들의 세상 중여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된 글의 계시를 통하거나 상관없이 계시된 것,

과학은 첫째 원인에 대한 가정 안에서 그 이성-탐색을 종료한다. 종교는 구원의 하느님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 신앙의 비행(飛行)을 멈추지 않는다. 과학의 분간하는 연구는 절대자의 실체와 실존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종교는 개인성 생존을 이룩하시는 하느님의 실존과 실체를 아낌없이 믿는다. 형이상학이 철저히 실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철학마저도 부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계시가 해 주는데; 그것은 과학의 이 첫째 원인과 종교가 가진 구원의 하느님이 하나이며 똑같은 신(神)임을 단언한다.

이성은 과학을 증명하고, 신앙은 종교를 증명하며, 논리는 철학을 증명하지만, 계시는 오직 인간의 체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과학은 지식을 낳고; 종교는 행복을 가져오며; 철학은 합일을 이룩하고; 계시는 우주 실체에 대한 이 삼원적 접근이 체험적인 조화임을 확인시킨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은 오직 자연의 하느님, 운동의 하느님을 계시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은 오직 물질과 운동 그리고 생기-생명-만을 드러낸다. 물질에 에너지를 더한 것은 특정 조건아

apparently divergent sciences of nature and the theology of religion into a consistent and logical universe philosophy, a co-ordinated and unbroken explanation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thus creating a harmony of mind and satisfaction of spirit which answers in human experience those questionings of the mortal mind which craves to know *how* the Infinite works out his will and plans in matter, with minds, and on spirit.

101:2.2 (1106.1) Reason is the method of science; faith is the method of religion; logic is the attempted technique of philosophy. Revelation compensates for the absence of the morontia viewpoint by providing a technique for achieving unity in the comprehension of the reality and relationships of matter and spirit by the mediation of mind. And true revelation never renders science unnatural, religion unreasonable, or philosophy illogical.

101:2.3 (1106.2) Reason, through the study of science, may lead back through nature to a First Cause, but it requires religious faith to transform the First Cause of science into a God of salvation; and revelation is further required for the validation of such a faith, such spiritual insight.

101:2.4 (1106.3) There are two basic reasons for believing in a God who fosters human survival:

101:2.5 (1106.4) 1. Human experience, personal assurance, the somehow registered hope and trust initiated by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01:2.6 (1106.5) 2. The revelation of truth, whether by direct personal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by the world bestowal of divine Sons, or through the revelations of the written word.

101:2.7 (1106.6) Science ends its reason-search in the hypothesis of a First Cause. Religion does not stop in its flight of faith until it is sure of a God of salvation. The discriminating study of science logically suggests the reality and existence of an Absolute. Religion believes unreservedly in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a God who fosters personality survival. What metaphysics fails utterly in doing, and what even philosophy fails partially in doing, revelation does; that is, affirms that this First Cause of science and religion's God of salvation are *one and the same Deity*.

101:2.8 (1106.7) Reason is the proof of science, faith the proof of religion, logic the proof of philosophy, but revelation is validated only by human experience. Science yields knowledge; religion yields happiness; philosophy yields unity; revelation confirms the experiential harmony of this triune approach to universal reality.

101:2.9 (1106.8) The contemplation of nature can only reveal a God of nature, a God of motion. Nature exhibits only matter, motion, and animation — life. Matter plus energy, under certain conditions, is

래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현시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 생명이, 현상으로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연속적이지만, 개별존재성으로서는 전적으로 과도기적이다. 자연은 인간-개인성 생존에서의 논리적 믿음에 관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자연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이미 그리고 맨 처음 자신의 혼 안에서 바로 이 동일한 개인적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다.

신앙은 혼속에 하느님을 계시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모른시아 통찰력 대신으로 사용되는 계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그의 혼속에 나타내는 동일한 하느님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계시는 물질세계와 영적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체와 창조자,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만(灣)에 성공적으로 다리를 놓는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이, 지능적인 안내에서의, 심지어는 살아있는 감독에서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가리켜 주기는 하지만, 그 어떤 만족스러운 방법으로도 개인적 하느님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연은 종교에서의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우주를 바라보는 존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느님은 자연만 가지고는 발견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발견하였다면, 자연의 연구는 우주의 더 높고 더욱 영적인 해석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시작한다.

계시는 하나의 신기원적인 현상으로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인간 체험으로서 그것은 계속적이다. 신성(神性)은 필사자의 개인성 안에서, 아버지의 조질자 선물로, 아들의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우주 영의 성령으로 기능하며, 반면에 이들 세 가지 초(超)필사자 자질들은 인간의 체험적 진화 속에서 최극자의 사명활동으로 통합된다.

참된 종교는 실체에 이르는 통찰력이고 도덕적 의식의 신앙-자녀이며, 독단적인 신조들로 이루어진 어떤 몸체에 대한 단순한 지적 찬동이 아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영 자체가 우리의 영에게 증거 하는” 체험 속에 존재한다. 종교는 신학적인 명제들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적 통찰력과 혼이 가진 신뢰의 숭고함 속에 있다.

너희의 가장 깊은 자연본성—신성한 조질자—이 너희 안에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신성한 완전함을 향한 어떤 갈망을 창조한다. 종교는 신성한 달성에 이르는 이 내적 충동의 인식에서의 신앙 행동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방법으로 의식하게 되는, 곧 개인성의 생존의 기법이며 그리고 너희가 참되고 선한 존재로서 바라보도록 이끌어 온, 저들 모든 가치를 너희가 의식하게 되는, 혼의 신뢰와 확신이 이렇게 하여 생긴다.

종교의 실현은 위대한 학문이나 명석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 통찰력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

manifested in living forms, but while natural life is thus relatively continuous as a phenomenon, it is wholly transient as to individualities. Nature does not afford ground for logical belief in human-personality survival. The religious man who finds God in nature has already and first found this same personal God in his own soul.

101:2.10 (1106.9) Faith reveals God in the soul. Revelation, the substitute for morontia insight on an evolutionary world, enables man to see the same God in nature that faith exhibits in his soul. Thus does revelation successfully bridge the gulf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even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between man and God.

101:2.11 (1107.1) The contemplation of nature does logically point in the direction of intelligent guidance, even living supervision, but it does not in any satisfactory manner reveal a personal God. On the other hand, nature discloses nothing which would preclude the universe from being looked upon as the handiwork of the God of religion. God cannot be found through nature alone, but man having otherwise found him, the study of nature becomes wholly consistent with a higher and more 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101:2.12 (1107.2) Revelation as an epochal phenomenon is periodic; as a personal human experience it is continuous. Divinity functions in mortal personality as the Adjuster gift of the Father, as the Spirit of Truth of the Son, and as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Spirit, while these three supermortal endowments are unified in human experiential evolution as the ministry of the Supreme.

101:2.13 (1107.3) True religion is an insight into reality, the faith-child of the moral consciousness, and not a mere intellectual assent to any body of dogmatic doctrines. True religion consists in the experience that “the Spirit it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Religion consists not in theologic propositions but in spiritual insight and the sublimity of the soul's trust.

101:2.14 (1107.4) Your deepest nature — the divine Adjuster — creates within you a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 certain craving for divine perfection. Religion is the faith act of the recognition of this inner urge to divine attainment; and thus is brought about that soul trust and assurance of which you become conscious as the way of salvation, the technique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and all those values which you have come to look upon as being true and good.

101:2.15 (1107.5) The realization of religion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dependent on great learning or clever logic. It is spiritual insight, and that is just the reason why some of the world's

한 종교 교사들의 일부,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때때로 세상의 지혜를 그처럼 적게 소유해 왔는가 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 종교적 신앙은 배운 자들에게나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유용한 것이다.

종교는 언제든지 그 자체적인 비평가와 재판관이 되어야만 한다; 외부로부터는 전혀 관찰될 수 없고, 납득은 더욱 그러하다. 개인적인 하느님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확신은 너희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체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사물에 대한, 너희 자신의 통찰력에 들어있다. 비슷한 체험을 이미 하였던 너희 동료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개인성 또는 실체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는 반면, 하느님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쟁으로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심리학은 사회 환경에 대한 종교적 반응들의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말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작용과 실제적이고 내적인 동기에 이르도록 뚫고 들어가기를 결코 희망할 수 없다. 신앙의 영역이며 계시의 기법인 신학만이 종교적 체험의 자연본성과 내용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능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종교의 특징들

종교는 너무도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데에서도 존속한다. 그것은 잘못된 우주론들과 그릇된 철학들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형이상학이 혼동된 상태에서도 잔존한다. 종교의 모든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두루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 진보와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것; 곧 윤리적 양심과 도덕적 의식이 항상 존속하고 있다.

신앙-통찰력, 곧 영적 직관(直觀)은 사람에게 수여된 아버지의 선물인 생각 조절자와 연관되어 있는 조화우주 마음의 자질이다. 영적 이성, 혼 지능은 창조 영이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인, 성령의 자질이다. 영적 실체들에 대한 지혜, 곧 영적 철학은 사람의 자녀에 대한 증여 아들들의 병합된 선물, 곧 진리의 영의 자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靈的) 자질들의 조화-협동과 상호-연관은 사람이 잠재적 운명 안에 있는 하나의 영 개인성을 이루게 한다.

원시적이고 싹트는 형태로 있는 이것이, 조절자가 육신의 자연적인 죽음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동일한 영 개인성이다. 인간 체험과 관계적-연합되어 있는 영 기원의 이 혼합적 실존개체가, 생명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과도기 동반자관계에서 헤어지는 때의, 마음과 물체의 물질자아의 분해를, 신성한 아들들에 의해 제공되는 생명의 길을 따라, (조절자의 보호관찰 안에서) 생존하게 할 수 있다.

greatest religious teachers, even the prophets, have sometimes possessed so little of the wisdom of the world. Religious faith is available alike to the learned and the unlearned.

101:2.16 (1107.6) Religion must ever be its own critic and judge; it can never be observed, much less understood, from the outside. Your only assurance of a personal God consists in your own insight as to your belief in, and experience with, things spiritual. To all of your fellows who have had a similar experience, no argument about the personality or reality of God is necessary, while to all other men who are not thus sure of God no possible argument could ever be truly convincing.

101:2.17 (1107.7) Psychology may indeed attempt to study the phenomena of religious reactions to the social environment, but never can it hope to penetrate to the real and inner motives and workings of religion. Only theology, the province of faith and the technique of revelation, can afford any sort of intelligent account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religious experience.

3.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N

101:3.1 (1107.8) Religion is so vital that it persists in the absence of learning. It lives in spite of its contamination with erroneous cosmologies and false philosophies; it survives even the confusion of metaphysics. In and through all the historic vicissitudes of religion there ever persists that which is indispensable to human progress and survival: the ethical conscience and the moral consciousness.

101:3.2 (1108.1) Faith-insight, or spiritual intuition, is the endowment of the cosmic mind in associ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which is the Father's gift to man. Spiritual reason, soul intelligence, is the endowment of the Holy Spirit, the Creative Spirit's gift to man. Spiritual philosophy, the wisdom of spirit realities, is the endowment of the Spirit of Truth, the combined gift of the bestowal Sons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e co-ordination and interassociation of these spirit endowments constitute man a spirit personality in potential destiny.

101:3.3 (1108.2) It is this same spirit personality, in primitive and embryonic form, the Adjuster possession of which survives the natural death in the flesh. This composite entity of spirit origin in association with human experience is enabled, by means of the living way provided by the divine Sons, to survive (in Adjuster custody) the dissolution of the material self of mind and matter when such a transient partnership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is divorced by the cessation of

사람의 혼은 종교적 신앙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며, 필사자 개인성이 어떤 괴로움을 주는 지적인 그리고 시련이 되는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방법으로서, 그 창발하는 자연본성의 잠재적 신성을 실증한다. 진정한 영적 신앙(참된 도덕적 의식)은 다음 안에서 계시된다:

1. 선천적인 그리고 역행하는 동물적 경향들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하여금 진보를 이룩하게 함.

2. 쓰라린 실망과 짓누르는 패배에 직면하여서도 하느님의 선함을 믿는 숭고한 신뢰를 창출함.

3. 자연의 역경과 물리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발생시킴.

4. 좌절시키는 질병과 심지어는 살을 에는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가해한 평정과 지속을 이루는 평온을 나타냄.

5. 부당한 학대와 지독한 불공정 앞에서 개인성의 신비로운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함.

6. 결보기에 무자비한 숙명의 잔인성과 인간 복지에 대한 자연 기세의 명백하게 철저한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승리에 대한 신성한 신뢰를 유지함.

7. 논리에서의 모든 반대하는 실증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속하고 다른 모든 지적 꾀변들을 성공적으로 견뎌.

8. 거짓된 과학의 현혹시키는 가르침과 불합리한 철학의 설득력 있는 망상에 상관없이, 혼의 생존에 대한 대담한 신앙을 계속 나타냄.

9. 현대의 복잡하고도 부분적인 문명에서의 짓누르는 과중한 부담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승리함.

10 인간의 이기심, 사회의 반목, 산업의 욕심, 그리고 정치적 잘못된 조절에도 불구하고 이타심의 계속되는 생존을 이루고 있음.

11 악과 죄의 복잡한 현존에 상관없이 우주적 합일과 신성한 안내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확고하게 신봉함.

12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계속해 나감. “그가 나를 치실 지라도, 나는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감히 선언함.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신성한 영 또는 그의 속에 거주하는 영들을 갖고 있음을 세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아는데: 그것은 첫째는 개인적 체험—종교적 신앙—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계시—개인

vital motion.

101:3.4 (1108.3) Through religious faith the soul of man reveals itself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divinity of its emerging nature by the characteristic manner in which it induces the mortal personality to react to certain trying intellectual and testing social situations. Genuine spiritual faith (true moral consciousness) is revealed in that it:

101:3.5 (1108.4) 1. Causes ethics and morals to progress despite inherent and adverse animalistic tendencies.

101:3.6 (1108.5) 2. Produces a sublime trust in the goodness of God even in the face of bitter disappointment and crushing defeat.

101:3.7 (1108.6) 3. Generates profound courage and confidence despite natural adversity and physical calamity.

101:3.8 (1108.7) 4. Exhibits inexplicable poise and sustaining tranquillity notwithstanding baffling diseases and even acute physical suffering.

101:3.9 (1108.8) 5. Maintains a mysterious poise and composure of personality in the face of maltreatment and the rankest injustice.

101:3.10 (1108.9) 6. Maintains a divine trust in ultimate victory in spite of the cruelties of seemingly blind fate and the apparent utter indifference of natural forces to human welfare.

101:3.11 (1108.10) 7. Persists in the unswerving belief in God despite all contrary demonstrations of logic and successfully withstands all other intellectual sophistries.

101:3.12 (1108.11) 8. Continues to exhibit undaunted faith in the soul's survival regardless of the deceptive teachings of false science and the persuasive delusions of unsound philosophy.

101:3.13 (1108.12) 9. Lives and triumphs irrespective of the crushing overload of the complex and partial civilizations of modern times.

101:3.14 (1108.13) 10. Contributes to the continued survival of altruism in spite of human selfishness, social antagonisms, industrial greeds, and political maladjustments.

101:3.15 (1108.14) 11. Steadfastly adheres to a sublime belief in universe unity and divine guidance regardless of the perplexing presence of evil and sin.

101:3.16 (1108.15) 12. Goes right on worshipping God in spite of anything and everything. Dares to declare, “Even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serve him.”

101:3.17 (1108.16) We know, then, by three phenomena, that man has a divine spirit or spirits dwelling within him: first, by personal experience — religious faith; second, by revelation — personal

적이고 인종적—에 의해서이다; 셋째는 실제적인 인간 실존에서의 실제적이고 시련을 주는 상황의 현존 안에서, 앞에 설명한 영을-담은 12가지 행위로서 묘사된 바와 같이, 그의 물질적 환경에 대한 것처럼 비범하고 반(反)자연적 반응들의 놀랄만한 전시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

그리고 필사 사람에게, 인간 자연본성의 더할 나위없는 자질, 곧 종교적 체험에서의 개인적 소유물과 영적 실체를 확인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권역 안에서, 신앙의 그러한 생생하고도 활발한 행위다.

제 4 장. 계시의 한계

너희 세상이 기원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물리적인 기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주론에 가르침을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향하여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계시에 대한 규칙들은 노력 없이 얻었거나 미성숙한 지식의 전달에 대한 그것들의 금지 조항에 의해 우리를 크게 제한한다.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으로 제시된 우주론은 모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쓰지 못할 운명에 처한다. 따라서 그러한 계시에 대한 미래의 연구자들은 그 안에 제시되어 연관된 조화우주론의 모습에서 실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계시가 답을 수도 있는 참된 종교적 진리의 어떤 요소를 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인류는 진리의 계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리들의 상급자들이 내리는 지시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음을 납득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천년의 과학적 발견들을 예측하기에는 자유롭지 않다. 계시자들은 계시 명령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어떤 방법도 모르며, 그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시 발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과 종교적 진리들은 다가오는 시대들의 기록 속에 남아 있게 되는 반면, 물리 과학에 관련된 우리들의 진술 대부분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발견과 부가적인 과학 발달에 따라 교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들을 우리는 지금도 예견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계시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계시들이 필연적으로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둔다. 이들 계시에서의 우주론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현재의 지식에서의 조화-협동과 분류에 관하여 우리가 받은 허락에 제한된다. 신성한 또는 영적 통찰력이 하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반면, 인간 지혜는 진화해야만 한다.

진리는 언제나 계시이다: 자동-계시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활동의 결과로 그것이 나타날 때이다; 신기원적 계시는 그것이 어떤 다른 천상(天上)의 대리자나 집단 또는 개인성의 기능에 의해 제시될 때이다.

and racial; and third, by the amazing exhibition of such extraordinary and unnatural reactions to his material environment as are illustrated by the foregoing recital of twelve spiritlike performances in the presence of the actual and trying situations of real human existence. And there are still others.

101:3.18 (1109.1) And it is just such a vital and vigorous performance of faith in the domain of religion that entitles mortal man to affirm the personal possession and spiritual reality of that crowning endowment of human nature, religious experience.

4. THE LIMITATIONS OF REVELATION

101:4.1 (1109.2) Because your world is generally ignorant of origins, even of physical origins, it has appeared to be wise from time to time to provide instruction in cosmology. And always has this made trouble for the future. The laws of revelation hamper us greatly by their proscription of the impartation of unearned or premature knowledge. Any cosmology presented as a part of revealed religion is destined to be outgrown in a very short time. Accordingly, future students of such a revelation are tempted to discard any element of genuine religious truth it may contain because they discover errors on the face of the associated cosmologies therein presented.

101:4.2 (1109.3) Mankind should understand that we who participate in the revelation of truth are very rigorously limited by the instructions of our superiors. We are not at liberty to anticipate the scientific discoveries of a thousand years. Revelators must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hich form a part of the revelation mandate. We see no way of overcoming this difficulty, either now or at any future time. We full well know that, while the historic facts and religious truths of this series of revelatory presentations will stand on the records of the ages to come, within a few short years many of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physical sciences will stand in need of revision in consequence of additional scientific developments and new discoveries. These new developments we even now foresee, but we are forbidden to include such humanly undiscovered facts in the revelatory records. Let it be made clear that revelations are not necessarily inspired. The cosmology of these revelations is *not inspired*. It is limited by our permission for the co-ordination and sorting of present-day knowledge. While divine or spiritual insight is a gift, *human wisdom must evolve*.

101:4.3 (1109.4) Truth is always a revelation: autorevelation when it emerges as a result of the work of the indwelling Adjuster; epochal revelation when it is presented by the function of some other celestial agency, group, or personality.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종교는 그 열매들에 의해, 그 자신의 선천적인 그리고 신성한 탁월성을 스스로 전시하는 그 방법과 범위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다.

비록 계시가 반드시 영적 현상일지라도, 진리는 다만 상대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우주론과 관련된 설명들이 결코 영감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한 계시들은 그것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식을 명백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

1. 권한을 가지고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혼란을 감소시킴.
2. 알려진 또는 곧-알려지게-될 사실과 관찰을 조화-협동시킴.
3. 아득한 과거에 있었던 신기원적 활동행위들에 관한 잃어버린 지식의 중요한 조각들을 회복시킴.
4. 치명적으로 빠져있는 공백으로 획득되지 못한 지식에서 공백을 채우게 될 정보를 제공함.
5. 지금 동봉되는 계시에 담긴 영적 가르침을 비추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조화우주 자료를 제시함.

제 5 장. 계시에 의해 확대된 종교

계시는, 영 취득의 진리로부터 진화의 실수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필요한 작업으로,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을 절약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과학은 사실을 다룬다; 종교는 오직 가치에만 관여한다. 마음은 깨우친 철학을 통하여 사실과 가치 둘 모두의 의미를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여 완벽한 실체의 개념에 도달한다. 과학은 지식의 권역이고, 철학은 지혜의 영역이며, 종교는 신앙 체험의 구체임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현시활동의 두 가지 위상을 제시한다:

1. 진화 종교. 원시적인 경배의 체험, 마음에서 유래되어지는 종교.
2. 계시 종교. 영에서 유래되어지는 우주적 태도; 영원한 실체들의 보존, 개인성의 생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신 조화우주 신(神)의 생겨나는 달성에 대한 확신과 그 안에서의 믿음. 진화 종교가 조만간에 계시에서의 영적 확대를 받아들이도록 예정된 것은 우주 계획의 한 부분이다.

과학과 종교는 둘 모두 논리적 추론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어떤 기초들에 대한 가정에서

101:4.4 (1109.5) In the last analysis, religion is to be judged by its fruits, according to the manner and the extent to which it exhibits its own inherent and divine excellence.

101:4.5 (1109.6) Truth may be but relatively inspired, even though revelation is invariably a spiritual phenomenon. While statements with reference to cosmology are never inspired, such revelations are of immense value in that they at least transiently clarify knowledge by:

- 101:4.6 (1109.7) 1. The reduction of confusion by the authoritative elimination of error.
- 101:4.7 (1109.8) 2. The co-ordination of known or about-to-be-known facts and observations.
- 101:4.8 (1110.1) 3. The restoration of important bits of lost knowledge concerning epochal transactions in the distant past.
- 101:4.9 (1110.2) 4. The supplying of information which will fill in vital missing gaps in otherwise earned knowledge.
- 101:4.10 (1110.3) 5. Presenting cosmic data in such a manner as to illuminate the spiritual teachings contained in the accompanying revelation.

5. RELIGION EXPANDED BY REVELATION

101:5.1 (1110.4) Revelation is a technique whereby ages upon ages of time are saved in the necessary work of sorting and sifting the errors of evolution from the truths of spirit acquirement.

101:5.2 (1110.5) Science deals with *facts*; religion is concerned only with *values*. Through enlightened philosophy the mind endeavors to unite the meanings of both facts and values, thereby arriving at a concept of complete *reality*. Remember that science is the domain of knowledge, philosophy the realm of wisdom, and religion the sphere of the faith experience. But religion, nonetheless, presents two phases of manifestation:

- 101:5.3 (1110.6) 1. Evolutionary religion. The experience of primitive worship, the religion which is a mind derivative.
- 101:5.4 (1110.7) 2. Revealed religion. The universe attitude which is a spirit derivative; the assurance of, and belief in, the conservation of eternal realities, the survival of personality, and the eventual attainment of the cosmic Deity, whose purpose has made all this possible. It is a part of the plan of the universe that, sooner or later, evolutionary religion is destined to receive the spiritual expansion of revelation.

101:5.5 (1110.8) Both science and religion start out with the assumption of certain generally accepted

출발한다. 그리하여 철학도 또한 다음의 세 가지 것들의 실체들에 대한 가정에서 그것의 경주를 시작한다:

1. 물질적인 육체.
2. 인간 존재, 혼 또는 심지어는 내주 하는 영의 초물질적 위상.
3. 인간 마음, 영과 물질 사이, 물질적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의 상호 교신과 상호-연관을 위한 기능구조.

과학자들은 사실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철학자들은 관념들을 조화-협동시키는 반면, 선지자들은 이상들을 고양시킨다. 느낌과 감정은 종교의 변함없는 부수물들이지만, 그들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체험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느끼는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는 논리(합리화)도 감정(느낌)도 종교적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 둘 모두가 비록, 모든 것에서 개별존재 마음의 지위와 기질적인 경향에 따라 영적 통찰력을 실제로 조장하는, 신앙의 실행과 다양하게 연관되기도 하지만, 종교적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다,

진화 종교는 진화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경배하는 특색의 조성과 육성이 위탁된 지역우주 마음 보조자의 자질이 외적(外的)으로 활동한 것이다. 그러한 원시 종교들은 윤리와 도덕, 곧 인간 의무에 대한 감각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러한 종교들은 양심의 확신에 바탕을 두며, 상대적으로 윤리적 문명에서의 안정을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계시된 종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세 개인들을 대표하는 증여된 영들에 의해 후원되며, 특별히 진리의 확대와 관계되어 있다. 진화 종교는 개별존재에게 개인적 의무에 대한 관념을 통감하게 한다; 계시 종교는 사랑하고 있는, 황금률에 점점 증가되는 강조를 쏟아 붓는다.

진화된 종교는 전적으로 신앙에 의존한다. 계시는 신성(神性)과 실체의 진리에 대한 그 확대된 발표에서의 추가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의 신앙과 계시의 진리가 실천적으로 작용하는 연합의 결과로 누적되는, 실제 체험에 대한 훨씬 더 가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인간적 신앙과 신성한 진리의 그러한 작용 연합은 모론시아적 개인성의 실제적인 습득에 이르는 길에서 풍부한 성격의 소유를 구성한다.

진화적 종교는 오직 신앙의 확신과 양심의 증거만을 제공한다; 계시적 종교는 신앙의 확신 이외(以外)에 계시의 실체들 속에 있는 살아있는 체험에 대한 진리를 제공한다. 종교에서의 세 번째 위상 또는 종교의 체험에서의 세 번째 위상은 모론시아 상태, 곧 모타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이해를 이룩하는 것이다. 모론시아 진보 안에서 계시된 종교의 진리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 너희는 최극

bases for logical deductions. So, also, must philosophy start its career upon the assumption of the reality of three things:

101:5.6 (1110.9) 1. The material body.

101:5.7 (1110.10) 2. The supermaterial phase of the human being, the soul or even the indwelling spirit.

101:5.8 (1110.11) 3. The human mind, the mechanism for intercommunication and interassociation between spirit and matter,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101:5.9 (1110.12) Scientists assemble facts, philosophers co-ordinate ideas, while prophets exalt ideals. Feeling and emotion are invariable concomitants of religion, but they are not religion. Religion may be the feeling of experience, but it is hardly the experience of feeling. Neither logic (rationalization) nor emotion (feeling) is essentially a part of religious experience, although both may variously be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faith in the furtherance of spiritual insight into reality, all according to the status and temperamental tendency of the individual mind.

101:5.10 (1110.13) Evolutionary religion is the outworking of the endowment of the local universe mind adjutant charged with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the worship trait in evolving man. Such primitive religions are directly concerned with ethics and morals, the sense of human duty. Such religions are predicated on the assurance of conscience and result in the stabilization of relatively ethical civilizations.

101:5.11 (1111.1) Personally revealed religions are sponsored by the bestowal spirits representing the thre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expansion of truth. Evolutionary religion drives home to the individual the idea of personal duty; revealed religion lays increasing emphasis on loving, the golden rule.

101:5.12 (1111.2) Evolved religion rests wholly on faith. Revelation has the additional assurance of its expanded presentation of the truths of divinity and reality and the still more valuable testimony of the actual experience which accumulates in consequence of the practical working union of the faith of evolution and the truth of revelation. Such a working union of human faith and divine truth constitutes the possession of a character well on the road to the actual acquirement of a morontial personality.

101:5.13 (1111.3) Evolutionary religion provides only the assurance of faith and the confirmation of conscience; revelatory religion provides the assurance of faith plus the truth of a living experience in the realities of revelation. The third step in religion, or the third phase of the experience of religion, has to do with the morontia state, the firmer grasp of mota. Increasingly in the

가치들에 대한 진리, 신성한 선(善), 우주적 관계, 영원한 실체,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모론시아 진보에 두루, 진리의 확신이 신앙의 확신을 점점 더 대체시킬 것이다. 너희가 실제적인 영의 세계 속으로 최종적으로 불러 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영 통찰력의 확신이 신앙과 진리 대신에 작용하게 되거나 또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기법의 개인성 확신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위에 겹쳐져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진보적인 종교 체험

게시된 종교의 모론시아 위상은 생존의 체험과 관계되며, 그것에서의 커다란 충동이 영 완전함의 달성이다. 또한 증가되는 윤리적 봉사에 대한 강제적인 부름과 연관하는, 경배에 대한 더 높은 충동이 있다. 모론시아 통찰력은 칠중자, 최극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의 영원히-확대하는 의식을 수반한다.

모든 종교적 체험에 두루, 물질적 차원에 대한 그것의 초기 발단으로부터 충만한 영 지위의 달성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절자는 최극자의 실존의 실체에 대한 개인적 실현의 비밀이다; 그리고 이 동일한 조절자는 또한 궁극자의 초월적 달성에 대한 너희의 신앙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 실존적 하느님의 조절자 본질에 연합되는, 진화하는 사람의 체험적 개인성은 최극 실존의 잠재적 완성을 구성하며 그리고 그것은 선천적으로, 초월적 개인성의 초(超)유한한 결국 생겨남을 위한 기초이다.

도덕적 의지는 이치에 맞는 지식에 기초하고, 지혜에 의해 증강되고, 그리고 종교적 신앙에 의해 인정되는 결정들을 포용할 것이다. 그러한 선택들은 도덕적 자연본성의 행동들이며 도덕적 개인성의 실존, 곧 모론시아 개인성의 그리고 결국에는 참된 영 지위의 선구자가 실존한다는 증거이다.

지식의 진화적 유형은 기억원형세포 물질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다. 지혜는 관계적-연합과 재결합의 과정에서 원형질의 기억으로부터 공식화된 관념들을 포용하며, 그러한 현상들이 인간 마음을 단순한 동물적 마음과 구분시킨다. 동물들도 지식을 소유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지혜 수용력을 소유하고 있다.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영, 곧 생각 조절자와 진리의 영이 그렇게 마음위에 증여됨으로서 지혜-자질로서 부여받은, 개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orontia progression the truths of revealed religion are expanded; more and more you will know the truth of supreme values, divine goodnesses, universal relationships, eternal realities, and ultimate destinies.

101:5.14 (1111.4) Increasingly throughout the morontia progression the assurance of truth replaces the assurance of faith. When you are finally mustered into the actual spirit world, then will the assurances of pure spirit insight operate in the place of faith and truth or, rather, in conjunction with, and superimposed upon, these former techniques of personality assurance.

6. PROGRESSIVE RELIGIOUS EXPERIENCE

101:6.1 (1111.5) The morontia phase of revealed religion has to do with the *experience of survival*, and its great urge is the attainment of spirit perfection. There also is present the higher urge of worship, associated with an impelling call to increased ethical service. Morontia insight entails an ever-expanding consciousness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even the Ultimate.

101:6.2 (1111.6) Throughout all religious experience, from its earliest inception on the material level up to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full spirit status, the Adjuster is the secret of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existence of the Supreme; and this same Adjuster also holds the secrets of your faith in the transcendental attainment of the Ultimate.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evolving man, united to the Adjuster essence of the existential God, constitutes the potential completion of supreme existence and is inherently the basis for the superfinite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 personality.

101:6.3 (1111.7) Moral will embraces decisions based on reasoned knowledge, augmented by wisdom, and sanctioned by religious faith. Such choices are acts of moral nature and evidence the existence of moral personality, the forerunner of morontia personality and eventually of true spirit status.

101:6.4 (1111.8) The evolutionary type of knowledge is but the accumulation of protoplasmic memory material; this is the most primitive form of creature consciousness. Wisdom embraces the ideas formulated from protoplasmic memory in process of association and recombination, and such phenomena differentiate human mind from mere animal mind. Animals have knowledge, but only man possesses wisdom capacity. Truth is made accessible to the wisdom-endowed individual by the bestowal on such a mind of the spirits of the Father and the Sons, the Thought Adjuster and the Spirit of Truth.

그리스도 미가엘은, 유란시아에 증여되었을 때,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진화 종교의 지배 아래에서 사셨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형의 사건이 끝나기까지 그는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병합된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을 진행해 갔다. 부활하신 그 날 아침부터 상승할 때까지는 물질세계로부터 영의 세계로 이 세상에서 변화하는 모론시아 삶의 여러 단계들을 지나가셨다. 미가엘은 상승하신 후에 최극위 체험의 주인, 최극자의 실현이 되셨다; 네바돈에서 최극자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무제한적 수용능력을 소유한 한 분 개인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역우주 속에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하여 최극위의 주권에서의 지위를 즉시 달성하셨다.

사람과의, 결국 생겨나는 융합 그리고 결과에 따른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하나 됨—하느님의 본질과 사람의 개인성 합성—이 그를, 잠재적으로, 최극자의 살아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게 한때의 필사 존재에게 최극자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우주 봉사에서의 최종성의 끝없는 추구에 대한 영원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

계시는 필사 사람에게, 시간의 진행이라는 수단을 써서 공간을 거치는, 것처럼 장엄하고도 흥미를 자아내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관념-결정들로 조직화함으로서 시작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지혜에게 자아-소유된 관념들을, 점점 더 실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이상들, 즉 관념으로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이상으로서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그들이 유한한 마음과 관계적-연합을 이룸으로서, 그로서 파라다이스 진리—우주 진리—의 시간-공간 현시활동인, 아들들의 진리의 영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마련되는, 그런 실재적 인간 보완물이 구축될 수 있는, 그래서 조절자가 그들을 병합하고 그리고 영성화하는 데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처럼 저들 관념으로 변환시키는 고귀한 과업에 끊임없이 수고하라고 권한을 위임한다, 관념-결정들, 논리적 이상 그리고 신성한 진리의 조화-협동은, 정의로운 성격, 곧 모론시아 세계의 늘-확대하고 점점 증가되는 영적 실체에 대한 필사자 입장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소유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지식과 지혜와 신앙과 진리 그리고 사랑의 조화로운 조화-협동을 그토록 충분하게 포용하여, 그로서 현세적인 평온과 지적 확신과 도덕적 깨우침과 철학적 안정성과 윤리적 민감성과 하느님-인식 그리고 개인적 구원에 대한 적극적 확신을 완벽하게 그리고 동시적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유란시아 종교를 이루었다. 예수의 신앙은 인간 구원의 최종, 필사자 우주 달성의 궁극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1. 영이신 하느님과 아들관계에 대한 개인

101:6.5 (1112.1) Christ Michael, when bestowed on Urantia, lived under the reign of evolutionary religion up to the time of his baptism. From that moment up to and including the event of his crucifixion he carried forward his work by the combined guidance of evolutionary and revealed religion. From the morning of his resurrection until his ascension he traversed the manifold phases of the morontia life of mortal transition from the world of matter to that of spirit. After his ascension Michael became master of the experience of Supremacy, the realization of the Supreme; and being the one person in Nebadon possessed of unlimited capacity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the Supreme, he forthwith attained to the status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in and to his local universe.

101:6.6 (1112.2) With man, the eventual fusion and resultant oneness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 the personality synthesis of man and the essence of God — constitute him, in potential, a living part of the Supreme and insure for such a onetime mortal being the eternal birthright of the endless pursuit of finality of universe service for and with the Supreme.

101:6.7 (1112.3) Revelation teaches mortal man that, to start such a magnificent and intriguing adventure through space by means of the progression of time, he should begin by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to idea-decisions; next, mandate wisdom to labor unremittingly at its noble task of transforming self-possessed ideas into increasingly practical but nonetheless supernal ideals, even those concepts which are so reasonable as ideas and so logical as ideals that the Adjuster dares so to combine and spiritize them as to render them available for such association in the finite mind as will constitute them the actual human complement thus made ready for the action of the Truth Spirit of the Sons, the time-space manifestations of Paradise truth — universal truth. The co-ordination of idea-decisions, logical ideals, and divine truth constitutes the possession of a righteous character, the prerequisite for mortal admission to the ever-expanding and increasingly spiritual realities of the morontia worlds.

101:6.8 (1112.4) The teachings of Jesus constituted the first Urantian religion which so fully embraced a harmonious co-ordination of knowledge, wisdom, faith, truth, and love as completely and simultaneously to provide temporal tranquillity, intellectual certainty, moral enlightenment, philosophic stability, ethical sensitivity, God-consciousness, and the positive assurance of personal survival. The faith of Jesus pointed the way to finality of human salvation, to the ultimate of mortal universe attainment, since it provided for:

101:6.9 (1112.5) 1. Salvation from material fetters in

적 실현으로 물질적 족쇄로부터의 구원.

2. 지적(知的)인 속박으로부터 구원: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함.

3.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구원, 필사 존재들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모든 우주 창조체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모론시아적 앎; 영적 실체에 대한 봉사를 발견함 그리고 영 가치의 선행에 대한 사명활동을-계시함.

4. 우주의 영적 차원들에 대한 달성을 통한 그리고 하보나의 조화와 파라다이스의 완성에 대한 생겨나는 실현을 통한 자아의 미완성으로부터의 구원.

5. 자아로부터의 구원, 최극 마음의 조화우주 차원의 달성을 통한 그리고 모든 다른 자아-의식 존재의 달성과의 조화-협동에 따른, 자아-의식의 한계에서 해방.

6. 시간으로부터의 구원, 하느님을-인지함 그리고 하느님께-봉사함 안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영원한 삶의 성취.

7. 유한으로부터의 구원, 창조체가 아(亞)절대의 최종자-이후 차원에서 궁극자에 대한 초월적인 발견을 시도하게 하는, 바로 그 궁극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신(神)과 완전해진 하나를 이름.

그러한 칠중 구원은 우주 아버지의 궁극적 체험의 실현에서의 완성과 완전과 동등한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 모든 것은 종교에 대한 인간 체험의 신앙의 실체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신앙이 나아가 궁극을 넘어서는 실체들로서 조장되었고, 그리고 그 실체들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조화우주 안에서 그러한 현시활동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주 절대적 지위에 접근하였다.

예수의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필사 사람은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실체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예수는, 인간의 체험 안에서, 최종 아버지의 발견을 이루었고, 그리고 육신으로 필사 삶을 사는 그의 형제들은 그를 따라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이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예수가 그의 신분으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 체험 안에서 똑같은 만족을 달성할 수 있다. 새로운 잠재들이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의 결과로 네바돈의 우주 안에 실재화 되었으며, 이들 중의 하나는, 만유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의 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었다, 그리고 이 길은 심지어 공간의 행성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물질 육신과 피로 이루어진 필사자들에 의해서도 통과될 수 있다. 예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새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the personal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who is spirit.

101:6.10 (1112.6) 2. Salvation from intellectual bondage: man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him free.

101:6.11 (1112.7) 3. Salvation from spiritual blindness, the human realization of the fraternity of mortal beings and the morontian awareness of the brotherhood of all universe creatures; the service-discovery of spiritual reality and the ministry-revelation of the goodness of spirit values.

101:6.12 (1113.1) 4. Salvation from incompleteness of self through the attainment of the spirit levels of the universe and through the eventual realization of the harmony of Havona and the perfection of Paradise.

101:6.13 (1113.2) 5. Salvation from self, deliverance from the limitations of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attainment of the cosmic levels of the Supreme mind and by co-ordination with the attainments of all other self-conscious beings.

101:6.14 (1113.3) 6. Salvation from time, the achievement of an eternal life of unending progression in God-recognition and God-service.

101:6.15 (1113.4) 7. Salvation from the finite, the perfected oneness with Deity in and through the Supreme by which the creature attempts the transcendental discovery of the Ultimate on the postfinaliter levels of the absonite.

101:6.16 (1113.5) Such a sevenfold salvation is the equivalent of the completeness and perfec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ultimate experi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this, in potential, is contained within the reality of the faith of the human experience of religion. And it can be so contained since the faith of Jesus was nourished by, and was revelatory of, even realities beyond the ultimate; the faith of Jesus approached the status of a universe absolute in so far as such is possible of manifestation in the evolving cosmos of time and space.

101:6.17 (1113.6)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the faith of Jesus, mortal man can foretaste in time the realities of eternity. Jesus made the discovery, in human experience, of the Final Father, and his brothers in the flesh of mortal life can follow him along this same experience of Father discovery. They can even attain, as they are, the same satisfaction in this experience with the Father as did Jesus as he was. New potentials were actualiz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consequent upon the terminal bestowal of Michael, and one of these was the new illumination of the path of eternity that leads to the Father of all, and which can be traversed even by the mortals of material flesh and blood in the initial life on the planets of space. Jesus was and is the new and living way

그로서 사람이, 단지 요청만 하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신성한 상속을 받게 되는 길이다. 인간성에서의, 나아가 신성한 인간성에서의 신앙 체험의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실증되고 있다.

제 7 장. 종교의 개인적 철학

하나의 관념은 행동을 위한 이론적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반면에 적극적 결정은 행동의 정당화된 계획이다. 고정관념은 정당화 없이 승인되어진 행동의 계획이다. 종교의 개인적 철학을 세우게 하는 물질들은 개별존재의 내적 체험과 환경적 체험 둘 모두로부터 도출된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교육적 기회, 도덕적 경향, 제도적 영향, 정치적 발달, 인종적 경향,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대와 장소에 따른 종교적 가르침은 모두 종교의 개인적 철학을 조성하는 요소들이 된다. 심지어는 선천적 기질과 지적 소질도 종교적 철학의 원형들을 두드러지게 결정짓는다. 직업, 결혼 그리고 혈족 관계는 모두 삶에서의 사람의 개인적 기준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

종교의 철학은 관념들과 이에 더해진 체험적 삶의 기본적 성장에서, 이 둘 모두가 연관-동료를 본받으려는 경향에 의하여 수정됨에 따라 것처럼, 진화되어 나온다. 철학적 결론의 건전성은, 의미에 대한 감수성과 평가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예리하고 정직하며 분별력 있는 사고(思考)에 달려 있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자들은 철학적 사고의 높은 수준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은 체험의 새로운 차원으로 침투하는 용기와 지적 삶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시도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가치에서의 새로운 체계가 제시되면서 실존으로 나아오고 있다; 원칙과 기준에서의 새로운 공식이 성취되고 있다; 습관과 이상은 다시 모습이 다듬어 진다;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도달되고, 뒤이어 그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확고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삶에 대한 종교적 철학과 비종교적 철학 사이의 큰 차이는 인지된 가치들의 자연본성과 차원 속에 그리고 충성심의 대상 속에 존재한다. 종교적 철학의 진화에는 네 개의 위상이 있다; 그러한 체험은 단지 순응하는, 전통과 권위에 대한 복종에 통치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을 안정시키기에 단지 충분한, 하찮은 달성으로 만족될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연한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 일찍부터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필사자들은 각자 홀로에게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 번째 집단은 논리적 지성작용의 차원으로 진보하지만 그곳에서 문화적 노예상태에서의 귀결로 침체에 빠진다. 거대한 지성들이 문화적 속박의 무자비한 손아귀 안에 그토록 견고하게

whereby man can come into the divine inheritance which the Father has decreed shall be his for but the asking. In Jesus there is abundantly demonstrated both the beginnings and endings of the faith experience of humanity, even of divine humanity.

7.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101:7.1 (1113.7) An idea is only a theoretical plan for action, while a positive decision is a validated plan of action. A stereotype is a plan of action accepted without validation. The materials out of which to build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are derived from both the inner and the environmental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The social status, economic conditions, educational opportunities, moral trends, institutional influences, political developments, racial tendencies, and the religious teachings of one's time and place all become factors in the formulation of a personal philosophy of religion. Even the inherent temperament and intellectual bent markedly determine the pattern of religious philosophy. Vocation, marriage, and kindred all influence the evolution of one's personal standards of life.

101:7.2 (1113.8) A philosophy of religion evolves out of a basic growth of ideas plus experimental living as both are modified by the tendency to imitate associates. The soundness of philosophic conclusions depends on keen, honest, and discriminating thinking in connection with sensitivity to meanings and accuracy of evaluation. Moral cowards never achieve high planes of philosophic thinking; it requires courage to invade new levels of experience and to attempt the exploration of unknown realms of intellectual living.

101:7.3 (1114.1) Presently new systems of values come into existence; new formulations of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achieved; habits and ideals are reshaped; some idea of a personal God is attained, followed by enlarging concepts of relationship thereto.

101:7.4 (1114.2)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a religious and a nonreligious philosophy of living consists in the nature and level of recognized values and in the object of loyalties. There are four phases in the evolution of religious philosophy: Such an experience may become merely conformative, resigned to submission to tradition and authority. Or it may be satisfied with slight attainments, just enough to stabilize the daily living, and therefore becomes early arrested on such an adventitious level. Such mortals believe in letting well enough alone. A third group progress to the level of logical intellectuality but there stagnate in consequence of cultural slavery. It is indeed pitiful to behold giant intellects held so securely

붙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자신들의 문화적 속박을, 과학이라고 거짓되게 부르는, 물질주의자들의 사슬과 거래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애처로운 일이다. 철학의 네 번째 차원은 모든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를 달성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서슴치않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모든 종교적 철학에 대한 엄격한 시험은, 지적인 분투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봉사 안에서 그들의 통일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실체들 사이에서 그것을 분별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다. 건전한 종교 철학은 하느님의 것들을 시저의 것들과 혼동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이로움의 심미적 예배종파를 종교에 대한 대용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학은 대체적으로 양심에서의 온당한 이야기였던 원시 종교를 조화우주 실체의 상승하는 가치들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으로 변환시킨다.

제 8 장. 신앙과 믿음

믿음은 그것이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양식을 실현할 때 신앙의 차원을 달성해 왔다. 가르침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확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다. 마음의 상태는 그것이 실제로 삶의 양식을 지배할 때에만 신앙 차원을 달성한다. 신앙은 참된 개인적 종교 체험의 살아있는 속성이다. 사람은 참된 것(眞)을 믿고 아름다움(美)을 동경하며 선한 것(善)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경배하지는 않는다; 구원하는 신앙에서의 그러한 태도는, 이들 개인화되고 그리고 더욱 더 무한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신 오직 홀로이신 하느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믿음은 항상 제한하고 속박한다; 신앙은 확대하고 풀어준다. 믿음은 고정시키고, 신앙은 해방시킨다. 그러나 살아있는 종교적 신앙은 고귀한 믿음들의 관계적-연합 이상(以上)이다; 철학의 고양된 체계 이상이다; 영적인 의미들과 신성한 이상들 그리고 최극의 가치들과 관련된 살아있는 체험이다; 하느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집단적인 소유물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이다. 신학적인 믿음은 어떤 집단에게 제시될 수 있지만, 신앙은 오직 종교인 개별존재의 가슴속에서만 발생된다.

신앙은 그것이 실체들을 거부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거짓된 지식을 수여할 때 그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그것이 지체고결한-순수성의 배반을 조성하고 최극의 가치들과 신성한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무시할 때 하나의 배신자가 된다. 신앙은 필사자 삶의 문제 해결의무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은 편협이나, 박해나 또는 옹졸함을 조장하지 않는다.

within the cruel grasp of cultural bondage. It is equally pathetic to observe those who trade their cultural bondage for the materialistic fetters of a science, falsely so called. The fourth level of philosophy attains freedom from all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handicaps and dares to think, act, and live honestly, loyally, fearlessly, and truthfully.

101:7.5 (1114.3) The acid test for any religious philosophy consists in whether or not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realities of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while at the same moment recognizing their unification in intellectual striving and in social serving. A sound religious philosophy does not confound the things of God with the things of Caesar. Neither does it recognize the aesthetic cult of pure wonder as a substitute for religion.

101:7.6 (1114.4) Philosophy transforms that primitive religion which was largely a fairy tale of conscience into a living experience in the ascending values of cosmic reality.

8. FAITH AND BELIEF

101:8.1 (1114.5) Belief has attained the level of faith when it motivates life and shapes the mode of living. The acceptance of a teaching as true is not faith; that is mere belief. Neither is certainty nor conviction faith. A state of mind attains to faith levels only when it actually dominates the mode of living. Faith is a living attribute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ne believes truth, admires beauty, and reverences goodness, but does not worship them; such an attitude of saving faith is centered on God alone, who is all of these personified and infinitely more.

101:8.2 (1114.6) Belief is always limiting and binding; faith is expanding and releasing. Belief fixates, faith liberates. But living religious faith is more than the association of noble beliefs; it is more than an exalted system of philosophy; it is a living experience concerned with spiritual meanings, divine ideals, and supreme values; it is God-knowing and man-serving. Beliefs may become group possessions, but faith must be personal. Theologic beliefs can be suggested to a group, but faith can rise up only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religionist.

101:8.3 (1114.7) Faith has falsified its trust when it presumes to deny realities and to confer upon its devotees assumed knowledge. Faith is a traitor when it fosters betrayal of intellectual integrity and belittles loyalty to supreme values and divine ideals. Faith never shuns the problem-solving duty of mortal living. Living faith does not foster bigotry, persecution, or intolerance.

신앙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속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발견들을 향하여 불합리한 선입관을 보이지도 않는다. 신앙은 종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종교인들로 하여금 용맹스럽게 황금률을 지키도록 강요한다. 신앙의 열정은 지식에 의거하며, 그것의 분투는 장엄한 평화의 전주곡이다.

제 9 장. 종교와 도덕

종교의 어떤 공언된 계시라도, 만약 그것 이전에 있었던 진화적 종교에 의해 창출되고 조성되어 온 윤리적 책무의 마땅한 요구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계시는 진화되는 종교의 윤리적 지평을 반드시 확장시키며,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들의 도덕적 책무들을 확대시킨다.

너희가 사람의 원시 종교에 대해 (또는 원시인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할 때, 너희는 그들의 깨우침과 의식의 지위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체험을 평가하고 그러한 미개인들을 판단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지식과 진리에 대한 네 자신의 표준들에 의해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참된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가장 높은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개념, 삶에서의 가장 위대한 가치들과 우주에서의 가장 깊이가 깊은 실체들에 대한 그의 가장 높은 해석을 구성하는 그러한 모론시아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잘못이라고 억누를 수 없이 그를 충고하는, 혼 안에 있는 숭고하고도 심오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는 다만 영적 의식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명령에 지능적 충성을 제공하는 체험이다.

아름다움(美)에 대한 추구는 오직 그것이 윤리적 그리고 도덕의 개념을 풍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일부분을 이룬다. 예술은 높은 영적 동기로부터 도출되는 목적으로 그것이 확산될 때에만 종교적이다.

문명화된 사람의 깨우친 영적 의식은 어떤 특정한 지적 믿음 또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삶의 방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한 진리 발견, 필사자 실존의 항상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한 반응의 알맞고 올바른 기법에 관심을 둔다. 도덕적 의식은, 의무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성의 일상적인 통제와 지도 안에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저들 윤리적이고 새로 창발하는 모론시아 가치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자각에 적용되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비록 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종교는 적어도 그 본성과 기능에서의 다음의

101:8.4 (1115.1) Faith does not shackle the creative imagination, neither does it maintain an unreasoning prejudice toward the discoveri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Faith vitalizes religion and constrains the religionist heroically to live the golden rule. The zeal of faith is according to knowledge, and its strivings are the preludes to sublime peace.

9. RELIGION AND MORALITY

101:9.1 (1115.2) No professed revelation of religion could be regarded as authentic if it failed to recognize the duty demands of ethical obligation which had been created and fostered by preceding evolutionary religion. Revelation unfailingly enlarges the ethical horizon of evolved religion while it simultaneously and unfailingly expands the moral obligations of all prior revelations.

101:9.2 (1115.3) When you presume to sit in critical judgment on the primitive religion of man (or on the religion of primitive man), you should remember to judge such savages and to evaluate their religious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their enlightenment and status of conscience. Do not make the mistake of judging another's religion by your own standards of knowledge and truth.

101:9.3 (1115.4) True religion is that sublime and profound conviction within the soul which compellingly admonishes man that it would be wrong for him not to believe in those morontial realities which constitute his highest ethical and moral concepts, his highest interpretation of life's greatest values and the universe's deepest realities. And such a religion is simply the experience of yielding intellectual loyalty to the highest dictates of spiritual consciousness.

101:9.4 (1115.5) The search for beauty is a part of religion only in so far as it is ethical and to the extent that it enriches the concept of the moral. Art is only religious when it becomes diffused with purpose which has been derived from high spiritual motivation.

101:9.5 (1115.6) The enlightened spiritual consciousness of civilized man is not concerned so much with some specific intellectual belief or with any one particular mode of living as with discovering the truth of living, the good and right technique of reacting to the ever-recurring situations of mortal existence. Moral consciousness is just a name applied to the human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those ethical and emerging morontial values which duty demands that man shall abide by in the day-by-day control and guidance of conduct.

101:9.6 (1115.7) Though recognizing that religion is imperfect, there are at least two practical

두 가지 실천적 현시활동이 있다:

1. 종교의 영적 충동과 철학적 압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판단을 직접 밖을 향해 그의 동료들의 관련사 안에 펼쳐지게 만드는 경향—종교의 윤리적 반응—이 있다.

2. 종교는 도덕적 가치들에서의 선제하던 개념과 그리고 영적 가치들에서의 더욱 포개어진 개념들과 조화-협동하는,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으로부터 신앙으로 도출된 신성한 실체에 대한 영성화된 의식을 인간 마음을 위하여 창출한다. 그리하여 종교는 필사자 관련사에서의 일종의 검열관이 되며, 시간에서의 증진된 실체와 영원에서의 더욱 오래가는 실체, 실체 안에서 영화롭게 된 도덕적 신뢰와 자신감의 한 형태가 되어간다.

신앙은 영구적 실체에 대한 도덕적 의식과 영적 개념 사이를 잇는 연결이 되고 있다. 종교는 사람이 현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의 물질적인 한계들로부터 탈출하여 구원이라는 기법, 진보적인 모론시아 변환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고도 영적인 세계의 숭고한 실체로 들어가는 큰길이 된다.

제 10 장. 사람의 해방자인 종교

지능적인 사람은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발생된 존재, 물질적 우주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에너지 우주의 수학적 차원의 운동과 긴장 속에서 그 어떤 개별 개인성의 생존도 식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물리적인 인과법칙의 고찰을 통하여 영적인 실체를 식별할 수도 전혀 없다.

또한 인간 존재는 자신이 관념적 조화우주의 일부분임을 인식하지만, 개념이 필사자 생활 범주를 넘어서 지속 하더라도, 착상하는 개인성의 개인적 생존을 나타내는 그 어떤 선천적인 개념이 아무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논리와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논리학자나 이성 연구자에게 개인성 생존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법칙의 물질적인 차원은 인과관계 연속성,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끝남이 없는 반응을 제공한다; 마음 차원은 관념적 연속성의 연속, 선제한 개념들로부터의 개념적 잠재성의 끊임 없는 흐름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주의 이러한 차원들 중 어떤 것도 호기심에 찬 필사자에게 지위의 불공평성으로부터 그리고 우주 안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제한된 생명 에너지의 소모에 따라 소멸될 처지에 처한 일시적 개인성이라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큰길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람이 우주 안에서 자신의 필사자 지위 속에 선천적인 족쇄를 영원토록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 통찰력에 이르게 하는 모론시아의 큰길을

manifestations of its nature and function:

101:9.7 (1115.8) 1. The spiritual urge and philosophic pressure of religion tend to cause man to project his estimation of moral values directly outward into the affairs of his fellows — the ethical reaction of religion.

101:9.8 (1115.9) 2. Religion creates for the human mind a spiritualized consciousness of divine reality based on, and by faith derived from, antecedent concepts of moral values and co-ordinated with superimposed concepts of spiritual values. Religion thereby becomes a censor of mortal affairs, a form of glorified moral trust and confidence in reality, the enhanced realities of time and the more enduring realities of eternity.

101:9.9 (1116.1) Faith becomes the connection between moral consciousness and the spiritual concept of enduring reality. Religion becomes the avenue of man's escape from the material limitations of the temporal and natural world to the supernal realities of the eternal and spiritual world by and through the technique of salvation, the progressive morontia transformation.

10. RELIGION AS MAN'S LIBERATOR

101:10.1 (1116.2) Intelligent man knows that he is a child of nature, a part of the material universe; he likewise discerns no survival of individual personality in the motions and tensions of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energy universe. Nor can man ever discern spiritual real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physical causes and effects.

101:10.2 (1116.3) A human being is also aware that he is a part of the ideational cosmos, but though concept may endure beyond a mortal life span, there is nothing inherent in concept which indicates the personal survival of the conceiving personality. Nor will the exhaustion of the possibilities of logic and reason ever reveal to the logician or to the reasoner the eternal truth of the survival of personality.

101:10.3 (1116.4) The material level of law provides for causality continuity, the unending response of effect to antecedent action; the mind level suggests the perpetuation of ideational continuity, the unceasing flow of conceptual potentiality from pre-existent conceptions. But neither of these levels of the universe discloses to the inquiring mortal an avenue of escape from partiality of status and from the intolerable suspense of being a transient reality in the universe, a temporal personality doomed to be extinguished upon the exhaustion of the limited life energies.

101:10.4 (1116.5) It is only through the morontial avenue leading to spiritual insight that man can ever break the fetters inherent in his mortal status

통해서이다. 에너지와 마음은 파라다이스와 신(神)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지만, 사람의 에너지 자질이나 마음 자질, 그 어떤 것도 그러한 파라다이스 신(神)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직 영적 의미에서만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의미에서만, 사람은 현재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자질로서 부여되고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다. 인류는 종교적인 체험의 큰길을 통해서 그리고 참된 신앙에 의해서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신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느님의 진리의 신앙을 받아들임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 한계들의 한정된 울타리들에서 탈출하도록 해주며, 물질적 영역, 죽음에 있는 곳으로부터, 영적인 영역, 생명이 영원한 곳인 그 곳까지, 안전한 행위의 성취에서의 합리적 희망을 잘 제공한다.

종교의 목적은 하느님에 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불변성과 철학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필사자와 신성한 자를, 부분적인 자를 완전한 자와, 사람을 하느님과 혼합시킴으로써 인간 삶을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관념성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실체를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이다.

신성에 대한 과학이나 논리적인 증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종교적 체험의 가치들과 우수성들을 전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모든 자는 영적 가치들의 정당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증명을 제시함에 있어서 필사자 차원에서 이룩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근이다. 오로지 그러한 신앙만이 물질세계의 기계적인 쇄고랑으로부터 그리고 지적 세계의 미완성에서 나오는 실수로 인한 왜곡으로부터 탈출을 잘 제공한다; 그것만이 개별 개인성의 연속적인 생존에 관한 필사자 사고(思考) 안에서의 곤경이 해결되도록 발견된 유일한 해답이다. 오직 그것만이 실체의 완성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 법칙, 합일의 우주적 창조 속에서 생명의 영원에 이르고, 그리고 진보하면서 신(神)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권이다.

종교는 이상론에서의 고립 또는 영적 고독에 대한 사람의 감각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종교는 믿는 자를 하느님의 아들로써, 새롭고도 의미 깊은 우주의 한 시민으로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혼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정의의 섬광을 따르면서, 무한자의 계획과 영원자의 목적에 자기 자신을 그에 따라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해방된 그러한 혼은 즉시 이 새로운 우주, 자신의 우주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너희가 신앙에 대한 그러한 변환을 체험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수학적 조화우주의 노예와 같은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우주 아버지의 해방된 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그러한 해방된 아들은 일시적인 실존의 종말이라는 냉혹한 운명에 대항하여 더 이상은 홀로 싸우지 않는다; 더 이상은 모든 자연 현상, 자기에게 절망적으로 대항하는 불평등

in the universe. Energy and mind do lead back to Paradise and Deity, but neither the energy endowment nor the mind endowment of man proceeds directly from such Paradise Deity. Only in the spiritual sense is man a child of God. And this is true because it is only in the spiritual sense that man is at present endowed and indwelt by the Paradise Father. Mankind can never discover divinity except through the avenue of religious experience and by the exercise of true faith. The faith acceptance of the truth of God enables man to escape from the circumscribed confines of material limitations and affords him a rational hope of achieving safe conduct from the material realm, whereon is death, to the spiritual realm, wherein is life eternal.

101:10.5 (1116.6) The purpose of religion is not to satisfy curiosity about God but rather to afford intellectual constancy and philosophic security, to stabilize and enrich human living by blending the mortal with the divine, the partial with the perfect, man and God. It is through religious experience that man's concepts of ideality are endowed with reality.

101:10.6 (1116.7) Never can there be either scientific or logical proofs of divinity. Reason alone can never validate the values and goodnesses of religious experience. But it will always remain true: Whosoever wills to do the will of God shall comprehend the validity of spiritual values. This is the nearest approach that can be made on the mortal level to offering proofs of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Such faith affords the only escape from the mechanical clutch of the material world and from the error distortion of the incompleteness of the intellectual world; it is the only discovered solution to the impasse in mortal thinking regarding the continuing survival of the individual personality. It is the only passport to completion of reality and to eternity of life in a universal creation of love, law, unity, and progressive Deity attainment.

101:10.7 (1117.1) Religion effectually cures man's sense of idealistic isolation or spiritual loneliness; it enfranchises the believer as a son of God, a citizen of a new and meaningful universe. Religion assures man that, in following the gleam of righteousness discernible in his soul, he is thereby identifying himself with the plan of the Infinite and the purpose of the Eternal. Such a liberated soul immediately begins to feel at home in this new universe, his universe.

101:10.8 (1117.2) When you experience such a transformation of faith, you are no longer a slavish part of the mathematical cosmos but rather a liberated volitional son of the Universal Father. No longer is such a liberated son fighting alone against the inexorable doom of the termination of temporal existence; no longer does he combat all

과 싸우지 않는다; 어쩌면 자신이 희망 없는 환상을 신뢰하거나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실수에 자기 신앙을 고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의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제는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들이 실존에서의 부분적 그림자들을 정복하는, 실체가 별이는 승리의 전쟁을 싸우는 일에 함께 하도록 징집되어 있다. 마침내 모든 창조체들은, 거의 제한 없는 우주의, 모든 신성한 무리들과 하느님이, 생명의 영원과 지위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 숭고한 투쟁 속에서 자기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신앙으로-해방된 그러한 아들들은, 영원의 최극 기세들과 신성한 개인성들의 편에 서서, 시간에서의 전투에 분명하게 징집된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여정에 있는 별들까지도 이제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들은 마침내 안으로부터, 하느님의 관점으로부터, 우주를 응시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은 물질적 고립의 불확실성으로 부터 영원한 영적 진보의 확실성으로 변환된다. 심지어는 시간 그 자체도 단지, 공간의 움직이는 찬란한 전신갑주 위에 파라다이스 실체들이 부어내어 던진 영원의 그림자가 되어갈 뿐이다.

[101:10.10]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nature, with the odds hopelessly against him; no longer is he staggered by the paralyzing fear that, perchance, he has put his trust in a hopeless phantasm or pinned his faith to a fanciful error.

101:10.9 (1117.3) Now, rather, are the sons of God enlisted together in fighting the battle of reality's triumph over the partial shadows of existence. At last all creatures become conscious of the fact that God and all the divine hosts of a well-nigh limitless universe are on their side in the supernal struggle to attain eternity of life and divinity of status. Such faith-liberated sons have certainly enlisted in the struggles of time on the side of the supreme forces and divine personalities of eternity; even the stars in their courses are now doing battle for them; at last they gaze upon the universe from within, from God's viewpoint, and all is transformed from the uncertainties of material isolation to the sureties of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Even time itself becomes but the shadow of eternity cast by Paradise realities upon the moving panoply of space.

101:10.10 (1117.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2 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 101

유랜시아 책

10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2 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색션

소개

제 1 장. 신앙의 확신

제 2 장. 종교와 실체

제 3 장. 지식, 지혜, 그리고 통찰력

제 4 장. 체험에서의 사실

제 5 장. 목적이 있는 잠재의 최극위

제 6 장.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제 7 장. 신성한 것에 대한 확신감

제 8 장. 종교의 징표들

PAPER 102

THE FOUNDATIONS OF RELIGIOUS FAITH

SECTIONS

Introduction

1. Assurances of Faith

2. Religion and Reality

3. Knowledge, Wisdom, and Insight

4. The Fact of Experience

5. The Supremacy of Purposive Potential

6. The Certainty of Religious Faith

7. The Certitude of the Divine

8. The Evidences of Religion

소개

믿지 않고 있는 물질주의자에게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진화적인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그의 생존의 희망은 필사자 상상이 만든 허구에 매달려 있다; 그의 두려움과 사랑과 열망과 믿음은 기껏해야 물질에서의 생명 없는 특정한 핵들의 우발적인 병렬 배치의 반응일 뿐이다. 그 어떤 에너지의 전이나 신뢰의 표현도 무덤을 넘어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사람들 중에서 최상자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수고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능들은 죽음 곧, 영원한 잊혀짐과 혼 소멸의 길고도 외로운 밤에 의하여 사라지도록 숙명 되어있다. 이름도 없는 절망이 필사자 실존에서의 현재적 태양 아래에서 영위하는 삶과 고역에 대한 사람의 유일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일생의 매일 매일이 무자비한 숙명의 손아귀, 냉담하고 혹독한 물질의 우주가 선포해 온 인간의 아름답고 고귀하며 고상하고 선한 욕망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더할 나위없는 모욕이 될 것이라는. 그 숙명의 손아귀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람의 끝이나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아니다; 그러한 광경은 영적 흑암 속에서 길을 잃게 된, 그리고 물질적 철학의 기계론

INTRODUCTION

^{102:0.1 (1118.1)} TO THE unbelieving materialist, man is simply an evolutionary accident. His hopes of survival are strung on a figment of mortal imagination; his fears, loves, longings, and beliefs are but the reaction of the incidental juxtaposition of certain lifeless atoms of matter. No display of energy nor expression of trust can carry him beyond the grave. The devotional labors and inspirational genius of the best of men are doomed to be extinguished by death, the long and lonely night of eternal oblivion and soul extinction. Nameless despair is man's only reward for living and toiling under the temporal sun of mortal existence. Each day of life slowly and surely tightens the grasp of a pitiless doom which a hostile and relentless universe of matter has decreed shall be the crowning insult to everything in human desire which is beautiful, noble, lofty, and good.

^{102:0.2 (1118.2)} But such is not man's end and eternal destiny; such a vision is but the cry of despair uttered by some wandering soul who has become

적 궤변의 얼굴과 모습으로 용감하게 투쟁하는, 복잡한 배움에서의 혼돈과 왜곡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있는 그러한 일부 해매고 있는 혼이 외치는 절망의 함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흑암의 숙명과 모든 이러한 절망의 운명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앙에서의 단 한번 뻗어주는 용감한 손길로 말미암아 영영토록 일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하는 신앙은, 필사자의 체험 안에서 인간적 가치들이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사람의 도덕적 의식이 실현할 때, 인간의 가슴속에서 태어난다.

제 1 장. 신앙의 확신

생각 조절자의 활동은 의무로 여기는 인간의 원시적이고 진화적인 감각이, 더욱 높고 더욱 확실한 신앙, 계시에서의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됨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최극 달성에 이르는 신앙의 행로들을 깊이 이해하는 수용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려는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신성한 뜻을 행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는 진리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들은 사랑받으려면 알려져야만 하지만, 신성한 것들은 알려지려면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정직한 의심과 진지한 질문은 죄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완전함 달성을 향한 진보하는 여행에서 단지 늦어짐이 있음을 철자할 따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하늘로 상승하여 이르는 왕국 안으로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확보하지만, 그러나 진보는 전적으로, 충만하게-성장한 사람의 튼튼하고 확신하는 신앙에서의 활기찬 실행에 달려 있다.

과학에서의 이성은 시간의 관찰 가능한 사실에 바탕을 둔다; 종교에서의 신앙은 영원에서의 영 계획으로부터 주장을 펼친다. 지식과 이성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참된 지혜는 종교적 통찰과 영적 변형을 통하여 신앙이 성취하도록 허용하라고 우리를 타이른다.

반란에 의한 고립 때문에, 유란시아에서 진리의 계시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우주론들의 진술과 너무나도 자주 뒤섞여 왔다. 진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물리적 세계에 대한 연관된 가르침들은 날마다, 해마다 바뀐다. 어찌다가 영원한 진리가 물질세계와 연관되는 진부한 관념들과 나란히 짝을 이루어 발견된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과학에서 점점 많은 것을 알수록, 너희는 점점 더 확신이 줄어들 것이다; 너희가 종교에서 점점 많은 것을 가질수록, 너희는 점점 더 확실해질 것이다.

과학에서의 확실성은 전적으로 지능으로부터 나아간다; 종교에서의 확신은 총체적 개인성의

lost in spiritual darkness, and who bravely struggles on in the face of the mechanistic sophistries of a material philosophy, blinded by the confusion and distortion of a complex learning. And all this doom of darkness and all this destiny of despair are forever dispelled by one brave stretch of faith on the part of the most humble and unlearned of God's children on earth.

102:0.3 (1118.3) This saving faith has its birth in the human heart when the moral consciousness of man realizes that human values may be translated in mortal experience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from time to eternity.

1. ASSURANCES OF FAITH

102:1.1 (1118.4) The work of the Thought Adjuster constitutes the explanation of the translation of man's primitive and evolutionary sense of duty into that higher and more certain faith in the eternal realities of revelation. There must be perfection hunger in man's heart to insure capacity for comprehending the faith paths to supreme attainment. If any man chooses to do the divine will, he shall know the way of truth. It is literally true, "Human things must be known in order to be loved, but divine things must be loved in order to be known." But honest doubts and sincere questionings are not sin; such attitudes merely spell delay in the progressive journey toward perfection attainment. Childlike trust secures man's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ly ascent, but progress is wholly dependent on the vigorous exercise of the robust and confident faith of the full-grown man.

102:1.2 (1119.1) The reason of science is based on the observable facts of time; the faith of religion argues from the spirit program of eternity. What knowledge and reason cannot do for us, true wisdom admonishes us to allow faith to accomplish through religious insight and spiritual transformation.

102:1.3 (1119.2) Owing to the isolation of rebellion, the revelation of truth on Urantia has all too often been mixed up with the statements of partial and transient cosmologies. Truth remains unchang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the associated teachings about the physical world vary from day to day and from year to year. Eternal truth should not be slighted because it chances to be found in company with obsolete ideas regarding the material world. The more of science you know, the less sure you can be; the more of religion you have, the more certain you are.

102:1.4 (1119.3) The certainties of science proceed entirely from the intellect; the certitudes of religion

바로 그 기초들로부터 솟아 나온다. 과학은 마음의 납득력에 동의를 호소한다; 종교는 몸, 마음, 그리고 영의 충성과 헌신에 동의를 호소하며, 심지어 전체 개인성에게까지 동의를 호소한다.

하느님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실제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표징이나 또는 소위 기적이라 불리는 그 어떤 실증도 그의 실체에 대한 증언으로 제공될 수 없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를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그의 무한한 실체에 대한 신성한 현시활동들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는, 오직 조절자의 신성한 근원인 하느님과 교제로만 적절하게 만족될 수 있는 그러한 멀리-미치는 호기심과 더불어, 사람의 혼 속에 완전함을 향한 참되고 그리고 찾아나서는 굶주림을 어김없이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굶주린 혼은 살아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개인적 실현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이건 만족되기를 거부한다. 하느님이 높고 완전한 도덕적 개인성보다 얼마나 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굶주린 그리고 유한한 개념 안에 있는 그보다 못한 그 어떤 것도 될 수는 없다.

제 2 장. 종교와 실체

관찰력이 예민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식별력 있는 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의 삶 속에서 종교를 발견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 종교는 어떤 정의(定義)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것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영적 열매들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인간 종족의 자산이라는 사실로부터 자라나며; 그것은 문화의 소산이 아니다. 정말로, 종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인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속박, 미신의 포로, 억지 이론의 속임, 그리고 잘못된 철학의 환상에 종속된다.

참된 종교적 확신의 특유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확인하는 바의 절대성과 그것의 태도의 역제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영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절되어서 자아-주장 또는 자기본위적인 도취라는 인상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적 체험의 지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기원되는 동시에 조절자의 유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역설적인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인 효력은 개별존재의 개인적 특권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지혜의 영속하는 근원과 사람의 숭고한 동반자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종교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든 깨우친 필사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령적인 것이 된다.

종교적인 체험을 정체성 확인하고 분석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이미 영원한 존재의 현존 안에 있는 것처럼 살

spring from the very foundations of the *entire personality*. Science appeal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ind; religion appeals to the loyalty and devotion of the body, mind, and spirit, even to the whole personality.

102:1.5 (1119.4) God is so all real and absolute that no material sign of proof or no demonstration of so-called miracle may be offered in testimony of his reality. Always will we know him because we trust him, and our belief in him is wholly based on our personal participation in the divine manifestations of his infinite reality.

102:1.6 (1119.5)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unfailingly arouses in man's soul a true and searching hunger for perfection together with a far-reaching curiosity which can be adequately satisfied only by communion with God, the divine source of that Adjuster. The hungry soul of man refuses to be satisfied with anything less than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living God. Whatever more God may be than a high and perfect moral personality, he cannot, in our hungry and finite concept, be anything less.

2. RELIGION AND REALITY

102:2.1 (1119.6) Observing minds and discriminating souls know religion when they find it in the lives of their fellows. Religion requires no definition; we all know its social,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fruits. And this all grows out of the fact that religion is the property of the human race; it is not a child of culture. True, one's perception of religion is still human and therefore subject to the bondage of ignorance, the slavery of superstition, the deceptions of sophistication, and the delusions of false philosophy.

102:2.2 (1119.7) One of the characteristic peculiarities of genuine religious assurance is that, notwithstanding the absoluteness of its affirmations and the stanchness of its attitude, the spirit of its expression is so poised and tempered that it never conveys the slightest impression of self-assertion or egoistic exaltation. The wisdom of religious experience is something of a paradox in that it is both humanly original and Adjuster derivative. Religious force is not the product of the individual's personal prerogatives but rather the outworking of that sublime partnership of man and the everlasting source of all wisdom. Thus do the words and acts of true and undefiled religion become compellingly authoritative for all enlightened mortals.

102:2.3 (1119.8)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of a religious experience, but it is not difficult to observe that such religious practitioners

면서 나아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불멸성이 이미 그들의 소유라도 된 듯이 이 현세적 삶에 반응한다. 그러한 필사자들의 삶 속에는, 오직 세상의 지혜만을 빨아들여 온 그들의 이웃들의 삶들로부터 그들을 언제까지나 분리시키는 정당한 기원성과 자연발생적 표현이 있다. 종교인들은 일시적인 현재의 시간 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변천들의 고통스러운 압박과 괴롭게 만드는 성급함으로부터의 효과적인 해방을 영위하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생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의 법칙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인성의 안정과 성격적 평온을 나타낸다.

시간은 지식의 달성에서 변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종교는 그러한 수여자질들이 종교적 체험의 모든 위상 안에서 명백한 전진에 즉시 쓰여 지도를 만든다. 지식이란 영원한 탐구이다; 너희는 항상 배우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절대 진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지식 자체 속에는 절대적 확실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어렵잡음의 가능성이 증가될 뿐이다; 그러나 영적 빛을 받은 종교적 혼은 알고 있으며, 바로 지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심오하고 적극적인 확신성은, 그러한 건전한-마음을 지닌 종교인으로 하여금, 느리게-움직이는 과학의 발전에 그 물질적 끝이 있는 처지에 묶인, 인간 지혜의 진보에서 생기는 상승과 하강 안에서, 흥미를 잃는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과학이 발견하는 것들조차도 그것들이 해명되고 상호 관계성을 가지기 전에는, 그 관련 사실들이 마음의 생각 흐름 안에서의 순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의미가 되기 전에는 인간 체험의 의식 안에서 진정으로 실체가 아니다. 필사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조차 마음 차원에서, 곧 그것의 정신 심리적 기록부에서의 전망으로부터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주에 관해 고도로 통합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런 다음 이러한 자신의 과학적 에너지 합일체를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서의 영적 합일체와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음은 합일체이다; 필사자의 의식은 마음 차원에서 존재하며 마음 자질의 눈을 통하여 우주적 실체들을 지각한다. 마음 투시도가 실체의 근원인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실존적 합일을 산출하지 않지만, 최극존제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체험적 합성을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고 또 가끔 그렇게 한다. 그러나 마음은 만일 그러한 마음이 물질적 사물, 지능적 의미, 그리고 영적 가치들을 확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실체의 다양성에서의 이 통일을 결코 이룩하지 못한다; 오직 기능적 실체의 삼원일체(三元一體)의 조화 속에서만 합일체가 있으며, 오직 합일체 속에서만 조화우주 불변성과 일관성의 실현에서의 개인성 만족이 있다.

합일체는 인간 체험 속에서 철학을 통하여 가장 잘 발견된다. 그리고 철학적 생각의 본체가 반드시 물질적인 사실들 위에 항상 기초를 두는 만

live and carry on as if already in the presence of the Eternal. Believers react to this temporal life as if immortality already were within their grasp. In the lives of such mortals there is a valid originality and a spontaneity of expression that forever segregate them from those of their fellows who have imbibed only the wisdom of the world. Religionists seem to live in effective emancipation from harrying haste and the painful stress of the vicissitudes inherent in the temporal currents of time; they exhibit a stabilization of personality and a tranquillity of character not explained by the laws of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102:2.4 (1120.1) Time is an invariable element in the attainment of knowledge; religion makes its endowments immediately available, albeit there is the important factor of growth in grace, definite advancement in all phases of religious experience. Knowledge is an eternal quest; always are you learning, but never are you able to arrive at the full knowledge of absolute truth. In knowledge alone there can never be absolute certainty, only increasing probability of approximation; but the religious soul of spiritual illumination *knows*, and knows *now*. And yet this profound and positive certitude does not lead such a sound-minded religionist to take any less interest in the ups and downs of the progress of human wisdom, which is bound up on its material end with the developments of slow-moving science.

102:2.5 (1120.2) Even the discoveries of science are not truly *real* in the consciousness of human experience until they are unraveled and correlated, until their relevant facts actually become *meaning* through encirclement in the thought streams of mind. Mortal man views even his physical environment from the mind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its psychological registry. It is not, therefore, strange that man should place a highly unified interpretation upon the universe and then seek to identify this energy unity of his science with the spirit unity of his religious experience. Mind is unity; mortal consciousness lives on the mind level and perceives the universal realities through the eyes of the mind endowment. The mind perspective will not yield the existential unity of the source of reality, the First Source and Center, but it can and sometime will portray to man the experiential synthesis of energy, mind, and spirit in and as the Supreme Being. But mind can never succeed in this unification of the diversity of reality unless such mind is firmly aware of material things, intellectual meanings, and spiritual values; only in the harmony of the trinity of functional reality is there unity, and only in unity is there the personality satisfaction of the realization of cosmic constancy and consistency.

102:2.6 (1120.3) Unity is best found in human experience through philosophy. And while the body of philosophic thought must ever be founded on

면, 참된 철학적 원동력의 혼과 에너지는 필사자의 영적 통찰력이다.

진화적인 사람은 원래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않도록 태어났다. 증대되는 종교적 체험의 강제적인 충동들과 밀려오는 요구들에 대하여 삶의 체험 속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 성장과 지적 확대, 사실적 확장, 그리고 사회적 봉사 안에서의 끊임없는 활동이다. 매우 활동적인 개인성과 상관이 없는 실제적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태한 사람들은 진부한 종교적 신조들과 독단들의 거짓된 피난처로 은거하는 휴양을 통하여 일종의 교묘한 자아-기만 형식으로, 참다운 종교적 활동에서의 엄중함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찾아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살아있다. 종교적 개념들의 지적 결정화(結晶化)는 영적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관념이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종교가 일단 오직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일종의 인간 철학이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짜증나는 요구들로부터 탈출하는 하나의 큰길로 종교의 정서적인 관념들을 이용하려는 불안정하고 거의 단련 되지 않은 혼들의 다른 유형들이 존재한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어떤 필사자들이 진화적인 삶의 끊임없는 압박으로부터 피하려고 시도할 때, 종교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피난처, 가장 좋은 탈출 큰길을 제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영웅적으로 삶의 변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다. 종교는 진화적인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진 최극의 자질인데,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무튼, 신비주의적 신앙은, 인간적 사회와 교제라는 열린 경기장 안에서 종교적 삶을 사는 보다 더 강건한 활동들을 즐기지 않는 그 인간들이 영위하는 삶으로부터 도피한 어떤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참된 종교는 반드시 행한다. 사람이 실제로 종교를 가질 때, 또는 오히려 종교가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정말로 허용되었을 때, 행위는 그것의 결과가 될 것이다. 종교는 단순한 사고(思考) 또는 행함이 없는 느낌에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가 때로 어리석게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행한다. 종교적인 신념의 탈선은 피로 얼룩진 박해를 가져오지만, 종교는 항상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 그것은 역동적이다!

제 3 장. 지식, 지혜, 그리고 통찰력

지식의 부족이나 교육의 결핍은 보다 높은 종교적 달성을 불가피하게 장애가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 본성에서의 그러한 허약한 환경은 과학적 지식의 세계와 철학적으로 접하는 주요 통로를 종교로부터 빼앗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에서의

material facts, the soul and energy of true philosophic dynamics is mortal spiritual insight.

102:2.7 (1120.4) Evolutionary man does not naturally relish hard work. To keep pace in his life experience with the impelling demands and the compelling urges of a growing religious experience means incessant activity in spiritual growth, intellectual expansion, factual enlargement, and social service. There is no real religion apart from a highly active personality. Therefore do the more indolent of men often seek to escape the rigors of truly religious activities by a species of ingenious self-deception through resorting to a retreat to the false shelter of stereotyped religious doctrines and dogmas. But true religion is alive. Intellectual crystallization of religious concepts is the equivalent of spiritual death. You cannot conceive of religion without ideas, but when religion once becomes reduced only to an *idea*, it is no longer religion; it has become merely a species of human philosophy.

102:2.8 (1121.1) Again, there are other types of unstable and poorly disciplined souls who would use the sentimental ideas of religion as an avenue of escape from the irritating demands of living. When certain vacillating and timid mortals attempt to escape from the incessant pressure of evolutionary life, religion, as they conceive it, seems to present the nearest refuge, the best avenue of escape. But it is the mission of religion to prepare man for bravely, even heroically, facing the vicissitudes of life. Religion is evolutionary man's supreme endowment, the one thing which enables him to carry on and “endure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Mysticism, however, is often something of a retreat from life which is embraced by those humans who do not relish the more robust activities of living a religious life in the open arenas of human society and commerce. True religion must *act*. Conduct will be the result of religion when man actually has it, or rather when religion is permitted truly to possess the man. Never will religion be content with mere thinking or unacting feeling.

102:2.9 (1121.2) We are not blind to the fact that religion often acts unwisely, even irreligiously, but it *acts*. Aberrations of religious conviction have led to bloody persecutions, but always and ever religion does something; it is dynamic!

3. KNOWLEDGE, WISDOM, AND INSIGHT

102:3.1 (1121.3) Intellectual deficiency or educational poverty unavoidably handicaps higher religious attainment because such an impoverished environment of the spiritual nature robs religion of its chief channel of philosophic contact with the

지적 요소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의 과도한 발달은 심하게 장애가 되고 곤란하다. 종교는 반드시 역설적인 필요성 밑에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곧 생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필요성과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모든 사고의 영적인 봉사가능성을 깎아내리는 필요성이다.

종교적인 사색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해로우며; 사색은 변함없이 그것의 대상을 왜곡한다. 사색은 물질적이거나 또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종교를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논리적인 생각의 명료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반면, 간접적으로는 종교가 현세적인 세계, 그것이 영속적으로 대조를 이루어야만 할 바로 그 세상에서의 하나의 기능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항상 역설적인 특성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역설은 우주의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모론시아 모타, 진리 식별과 합일체 인식을 위한 초이성적 감수성—사이의 체험적 연결이 결핍됨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물질적인 느낌, 인간 감정은 물질적인 행동, 이기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이끈다. 종교적인 통찰력, 영적 동기는 종교적인 행동, 사회적 봉사의 사심-없는 행동 그리고 이타적 박애심에 직접적으로 이끈다.

종교적 욕망은 신성한 실체를 갈구하며 탐구하는 것이다. 종교적 체험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있음에 대한 의식(意識)의 실현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 존재가 하느님을 발견할 때는, 그 존재의 혼 안에서는 함께 체험되는 것이 있으니, 발견에서 나오는 승리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이 너무나 일어나서, 그는 자신보다 덜 계몽된 자기 동료들을 찾아내어 사랑 넘치는 봉사-접촉을 추구하려고 재촉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느님을 찾아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동료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고귀하게 하려고 자신의 혼 안에서 영원한 선함이 넘쳐흐르게 허용하는 그러한 체험이다. 실제적인 종교는 증가되는 사회 봉사로 이끈다.

과학, 지식은 사실 의식으로 이끈다; 종교, 체험은 가치 의식으로 이끈다; 철학, 지혜는 조화-협동 의식으로 이끈다; 계시(모론시아 모타의 대용품)는 참된 실체의 의식으로 이끈다; 반면에 사실과 가치 그리고 참된 실체에 대한 의식의 조화-협동은, 바로 그 개인성의 생존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개인성 실체, 존재의 최고점에 대한 인식을 구축한다.

지식은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사회적인 계층과 특권계급을 창설하도록 유도한다. 종교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리하여 윤리와 이타심이 생성되도록 유도한다. 지혜는 각 사람의 동료들과 관념들 모두에 대한 더 높고 더 나은 교제로 인도한다. 계시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모험 여행을 시작하게 한다.

world of scientific knowledge. The intellectual factors of religion are important, but their overdevelopment is likewise sometimes very handicapping and embarrassing. Religion must continually labor under a paradoxical necessity: the necessity of making effective use of thought while at the same time discounting the spiritual serviceableness of all thinking.

102:3.2 (1121.4) Religious speculation is inevitable but always detrimental; speculation invariably falsifies its object. Speculation tends to translate religion into something material or humanistic, and thus, while directly interfering with the clarity of logical thought, it indirectly causes religion to appear as a function of the temporal world, the very world with which it should everlastingly stand in contrast. Therefore will religion always be characterized by paradoxes, the paradoxes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the experiential connection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levels of the universe — morontia mota, the superphilosophic sensitivity for truth discernment and unity perception.

102:3.3 (1121.5) Material feelings, human emotions, lead directly to material actions, selfish acts. Religious insights, spiritual motivations, lead directly to religious actions, unselfish acts of social service and altruistic benevolence.

102:3.4 (1121.6) Religious desire is the hunger quest for divine reality. Religious experience is the realiz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having found God. And when a human being does find God, there is experienced within the soul of that being such an indescribable restlessness of triumph in discovery that he is impelled to seek loving service-contact with his less illuminated fellows, not to disclose that he has found God, but rather to allow the overflow of the welling-up of eternal goodness within his own soul to refresh and ennoble his fellows. Real religion leads to increased social service.

102:3.5 (1122.1) Science, knowledge, leads to *fact* consciousness; religion, experience, leads to *value* consciousness; philosophy, wisdom, leads to *co-ordinate* consciousness; revelation (the substitute for morontia mota) leads to the consciousness of *true reality*; while the co-ordin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fact, value, and true reality constitutes awareness of personality reality, maximum of being, together with the belief in the possibility of the survival of that very personality.

102:3.6 (1122.2) Knowledge leads to placing men, to originating social strata and castes. Religion leads to serving men, thus creating ethics and altruism. Wisdom leads to the higher and better fellowship of both ideas and one's fellows. Revelation liberates men and starts them out on the eternal adventure.

과학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종교는 사람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한다; 지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만; 계시는 사람을 찬미하고 하느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역량을 드러낸다.

과학은 문화의 형제신분을 이루기 위하여 헛되이 분투한다; 종교는 영의 형제신분이 이룩되게 한다. 철학은 지혜의 형제신분을 위해 분투한다; 계시는 영원한 형제신분인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들을 묘사한다.

지식은 개인성의 사실에서 자부심을 산출한다; 지혜는 개인성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다; 종교는 개인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체험이다; 계시는 개인성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과학은 무한한 조화우주의 분할된 부분들을 정체성 확인하고 분석하며 분류하려고 추구한다. 종교는 전부로서의-관념, 전체 조화우주를 파악한다. 철학은 전부로서의 영적-통찰력 개념과 과학의 물질적 부분들을 정체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철학이 실패하는 그 점에서, 계시는 성공을 거두는데, 조화우주 순환계가 우주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함을 확인한다. 무한자 스스로 이신이의 이 조화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으며 제한이 없음—을 포함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자 스스로 이신 이가 또한 네바돈 미가엘의 아버지이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이심을 증언하는 바이다.

과학은 신(神)을 하나의 사실로 표시한다; 철학은 하나의 절대자의 관념을 제시한다; 종교는 하나의 사랑하는 영적 개인성으로 하느님을 그린다. 계시는 신(神)의 사실, 절대자의 관념 그리고 하느님의 영적인 개인성의 합일을 단언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을 우리의 아버지—실존에서의 우주적 사실, 마음에서의 영원한 관념, 생명에서의 무한한 영—로 나타낸다.

지식의 추구는 과학의 구성 요소이다; 지혜 탐구는 철학이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종교이다;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계시이다. 그러나 실체의 느낌을 조화우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 통찰력에 덧붙여 주는 것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이다.

과학에서는, 관념이 그 실현에서의 표현보다 앞서며; 종교에서는, 실현의 체험이 관념에서의 표현보다 앞선다. 진화하는 믿고자-하는-의지와, 깨우친 이성, 종교적 통찰력, 계시의 산물—믿고 있는 의지—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있다.

진화에 있어서,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창출하도록 종교가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시는 진화하는 하느님의 사람 자신에 대한 현상을 나타내는 반면, 그리스도 미가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102:3.7 (1122.3) Science sorts men; religion loves men, even as yourself; wisdom does justice to differing men; but revelation glorifies man and discloses his capacity for partnership with God.

102:3.8 (1122.4) Science vainly strives to create the brotherhood of culture; religion brings into being the brotherhood of the spirit. Philosophy strives for the brotherhood of wisdom; revelation portrays the eternal brotherhood,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02:3.9 (1122.5) Knowledge yields pride in the fact of personality; wisdom is the consciousness of the meaning of personality; religion is the experience of cognizance of the value of personality; revelation is the assurance of personality survival.

102:3.10 (1122.6) Science seeks to identify, analyze, and classify the segmented parts of the limitless cosmos. Religion grasps the idea-of-the-whole, the entire cosmos. Philosophy attempts the identification of the material segments of science with the spiritual-insight concept of the whole. Wherein philosophy fails in this attempt, revelation succeeds, affirming that the cosmic circle is universal, eternal, absolute, and infinite. This cosmos of the Infinite I AM is therefore endless, limitless, and all-inclusive — timeless, spaceless, and unqualified. And we bear testimony that the Infinite I AM is also the Father of Michael of Nebadon and the God of human salvation.

102:3.11 (1122.7) Science indicates Deity as a fact; philosophy presents the *idea* of an Absolute; religion envisions God as a loving *spiritual personality*. Revelation affirms the *unity* of the fact of Deity, the idea of the Absolute, and the spiritual personality of God and, further, presents this concept as our Father — the universal fact of existence, the eternal idea of mind, and the infinite spirit of life.

102:3.12 (1122.8) The pursuit of knowledge constitutes science; the search for wisdom is philosophy; the love for God is religion; the hunger for truth is a revelation. But it is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that attaches the feeling of reality to man's spiritual insight into the cosmos.

102:3.13 (1122.9) In science, the idea precedes the expression of its realization; in religion, the experience of realization precedes the expression of the idea. There is a vast difference between the evolutionary will-to-believe and the product of enlightened reason, religious insight, and revelation — the *will that believes*.

102:3.14 (1122.10) In evolution, religion often leads to man's creating his concepts of God; revelation exhibits the phenomenon of God's evolving man himself, while in the earth life of Christ Michael we behold the phenomenon of God's revealing himself

게시하시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진화는 하느님을 사람과-같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계시는 사람을 하느님과-같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과학은 단지 최초의 원인으로, 종교는 최종 개인성으로, 철학은 합일로서 만족된다. 계시는 이러한 세 가지가 하나이며,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영원한 실체는 우주의 선(善)이며 공간 악에서의 시간 환상이 아니다. 모든 개인성들의 영적인 체험 속에서는, 실체가 선이고 선이 실체라는 사실이 항상 진리이다.

제 4 장. 체험에서의 사실

생각 조절자의 너희 마음속에 있는 현존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듯이, 인간적이든지 초인간적이든지 다른 어떤 존재의 마음을 안다는 의식(意識)의 확신은 너희에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종교와 사회적 의식은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다른 존재가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한 의식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너희가 다른 존재들의 관념을 마치 너희 것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너희 속에 품어라”고 할 수 있는 기법과 같다.

인간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아와, 그리고 다른 어떤 활동적인 외부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체험의 질량은 개념의 깊이와, 여기에 더해진 외부자의 실체에 대한 인지의 전체성으로 결정된다. 체험의 운동은 기대하는 상상의 기세와, 여기에 더해진 접촉되는 실체의 외부 본질특성에 대한 감각적 발견에서의 예민함과 동등하다. 체험의 사실은 자아-의식과 다른-실존들—다른 사물존재성, 다른 마음존재성, 다른 영(靈)존재성—을 합한 것 안에서 발견된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또는 우주 안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매우 일찍부터 인식하게 된다. 자아신분의 환경 속에서, 다른-마음작용에 대한 자아-의식이 자연 본성적으로 저절로 발달된다. 신앙은 이러한 자연적 체험을 종교, 하느님을 다른-마음작용에서의 실체—근원, 자연, 그리고 운명—로서 인지하는 것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라도 그리고 항상 개인적 체험의 실체이다. 만약에 하느님이 개인성이 아니시라면, 그는 인간 개인성이 겪는 실제 종교 체험의 살아있는 부분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종교적 체험 속에 나타나는 실수의 요소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영적 개념을 오염시키는 물질주의의 내용물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영-이전(以前)의 사람의 우주 안에서의 진보는, 순수하고 참된 영의 실체와 하느님의 자연본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관념들을 떨쳐버리는 체험 속에 존재한다. 신(神)은 영(靈) 이상(以上)이지만, 영적인 접근만이 상승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유일한 것

to man. Evolution tends to make God manlike; revelation tends to make man Godlike.

102:3.15 (1122.11) Science is only satisfied with first causes, religion with supreme personality, and philosophy with unity. Revelation affirms that these three are one, and that all are good. The *eternal real* is the good of the universe and not the time illusions of space evil.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all personalities, always is it true that the real is the good and the good is the real.

4. THE FACT OF EXPERIENCE

102:4.1 (1123.1) Because of the presence in your minds of the Thought Adjuster, it is no more of a mystery for you to know the mind of God than for you to be sure of the consciousness of knowing any other mind, human or superhuman. Religion and social consciousness have this in common: They are predicated on the consciousness of other-mindness. The technique whereby you can accept another's idea as yours is the same whereby you may “let the mind which was in Christ be also in you.”

102:4.2 (1123.2) What is human experience? It is simply any interplay between an active and questioning self and any other active and external reality. The mass of experience is determined by depth of concept plus totality of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 external. The motion of experience equals the force of expectant imagination plus the keenness of the sensory discovery of the external qualities of contacted reality. The fact of experience is found in self-consciousness plus other-existences — other-thingness, other-mindness, and other-spiritness.

102:4.3 (1123.3) Man very early becomes conscious that he is not alone in the world or the universe. There develops a natural spontaneous self-consciousness of other-mindness in the environment of selfhood. Faith translates this natural experience into religion, the recognition of God as the reality — source, nature, and destiny — of *other-mindness*. But such a knowledge of God is ever and alway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If God were not a personality, he could not become a living part of the real religious experience of a human personality.

102:4.4 (1123.4) The element of error present in human religious experienc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tent of materialism which contaminates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Man's prespirit progression in the universe consists in the experience of divesting himself of these erroneous ideas of the nature of God and of the reality of pure and true spirit. Deity is more than

이다.

기도가 종교적인 체험의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대 종교인들에 의해 잘못되게 강조되어 왔는데, 더욱이 경배라는 더욱 근본적인 교제가 너무 무시되어 왔다. 마음의 반영하는 힘은 경배에 의해 결정되고 확장된다. 기도는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경배는 운명을 밝혀준다.

게시된 종교는 인간 실존에서 통합을 이루게 하는 요소이다. 게시는 역사를 통합하고, 지질학, 우주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을 조화-협동시킨다. 영적 체험은 사람의 조화우주의 실제 혼이다.

제 5 장. 목적이 있는 잠재의 최극위

믿음이라는 사실의 확립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사실을 성립시키는 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성의 지위를 향하는 단순한 삶의 진화적인 진보는, 시작할 수 있는 개인성 잠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는 우주들에서는, 잠재가 항상 실제보다 최극이다. 진화하는 조화우주에서의 잠재는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은 신(神)의 의도적인 지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동일한 의도적 최극위는, 원시적인 동물적 공포심이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하느님에 대한 존경으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점점 더 심화되는 경외심으로 전환될 때, 마음 관념작용의 진화 속에서 나타난다. 원시인은 신앙보다 더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졌었으며, 실제적인 마음을 지배하는 잠재적 영의 최극위는 비겁한 이 두려움이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전환될 때 실증되어 진다.

너희는 진화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기원되는 개인적-체험의 종교는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성이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지만, 오직 종교만이 그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영성화(靈性化)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감정적으로 취급되는 도덕성 이상의 어떤 것이다. 사랑이 의무를 가져오듯이, 아들관계가 예측성을 가져오듯이, 본질이 실체를 가져오듯이, 종교는 도덕성을 가져온다. 도덕성은 전능의 통제자, 심금을 받으실 신(神)을 드러내며; 종교는 모든-사랑이신 아버지, 경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실 하느님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영적인 잠재성이 진화의 도덕성이 갖는 실체성의 의무를 지배한다.

제 6 장.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spirit, but the spiritual approach is the only one possible to ascending man.

102:4.5 (1123.5) Prayer is indeed a part of religious experience, but it has been wrongly emphasized by modern religions, much to the neglect of the more essential communion of worship. The reflective powers of the mind are deepened and broadened by worship. Prayer may enrich the life, but worship illuminates destiny.

102:4.6 (1123.6) Revealed religion is the unifying element of human existence. Revelation unifies history, co-ordinates geology, astronomy, physics, chemistry, biology, sociology, and psychology. Spiritual experience is the real soul of man's cosmos.

5. THE SUPREMACY OF PURPOSIVE POTENTIAL

102:5.1 (1123.7)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 of belief is not equivalent to establishing the fact of that which is believed, nevertheless, the evolutionary progression of simple life to the status of personality does demonstrate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the potential of personality to start with. And in the time universes, potential is always supreme over the actual. In the evolving cosmos the potential is what is to be, and what is to be is the unfolding of the purposive mandates of Deity.

102:5.2 (1124.1) This same purposive supremacy is shown in the evolution of mind ideation when primitive animal fear is transmuted into the constantly deepening reverence for God and into increasing awe of the universe. Primitive man had more religious fear than faith, and the supremacy of spirit potentials over mind actuals is demonstrated when this craven fear is translated into living faith in spiritual realities.

102:5.3 (1124.2) You can psychologize evolutionary religion but not the personal-experience religion of spiritual origin. Human morality may recognize values, but only religion can conserve, exalt, and spiritualize such values. But notwithstanding such actions, religion is something more than emotionalized morality. Religion is to morality as love is to duty, as sonship is to servitude, as essence is to substance. Morality discloses an almighty Controller, a Deity to be served; religion discloses an all-loving Father, a God to be worshiped and loved. And again this is because the spiritual potentiality of religion is dominant over the duty actuality of the morality of evolution.

6. THE CERTAINTY OF RELIGIOUS FAITH

종교적 두려움을 철학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꾸준한 과학의 발전은 잘못된 하느님들을 사라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람이 만든 신(神)들이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영적인 선견지명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사랑의 살아 계신 하느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그 무지와 미신을 타파할 것이다.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살아있는 체험, 명확한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하나의 역동적인 종교적 신념이다. 삶의 일부를 고립시키고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삶의 집대성-해체시키고 그리고 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를 받으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충성이 아니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이유이다.

원시인의 하느님들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살아 계신 하느님은 신성한 빛이신데, 그것의 중단이 모든 공간의 창조 그림자들을 구성한다.

철학적인 달성에서의 종교인들은 개인적 구원의 개인적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며, 그것은 실체, 가치, 성취의 차원, 고양된 과정, 변형, 시간-공간의 궁극자, 이상화(理想化), 에너지의 개인성구현, 중력의 실존개체, 인간 구체적 투사 활동, 자아의 이상화, 자연본성의 상승, 선(善)함을 향한 경향, 진화의 나가려는 충동, 또는 숭고한 전체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종교인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랑은 종교의 본질이며 우월한 문명의 원천이다.

신앙은 그럴듯한 철학적 하느님을 변환시켜서 개인적인 종교 체험 속에서 확실성을 주는 구원의 하느님이 되게 한다. 무신론이 신학의 이론에 도전할 수 있지만, 개인적 체험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은, 자라나서 신앙이 되고 있는 그 믿음에서의 진리를 확인한다.

하느님에 관한 신념은 현명한 이성 작용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지만, 각 개별존재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만 하느님을 알게 된다. 삶에 관계하는 한,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조화우주 실체와 접촉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들과 가치들이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 접근되면서 확실성이 체험될 수 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이 지식이 지적인 논리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도, “내가 안다”고 감히 말한다. 의심하는 그러한 각 사람에게 믿는 자는 오직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대답할 뿐이다.

이성이 항상 신앙을 의심할지라도, 신앙은 항상 이성과 논리 두 가지를 다 보충할 수 있다. 이성은 신앙이 도덕적 확실성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체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한다. 하느님은 최초의 진리이시고 최종적인 사실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그로부터 기원되는 반면, 모든 사실들은 그에 대하여 상대적으

102:6.1 (1124.3) The philosophic elimination of religious fear and the steady progress of science add greatly to the mortality of false gods; and even though these casualties of man-made deities may momentarily befog the spiritual vision, they eventually destroy that ignorance and superstition which so long obscured the living God of eternal love. The relation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is a living experience, a dynamic religious faith, which is not subject to precise definition. To isolate part of life and call it religion is to disintegrate life and to distort religion. And this is just why the God of worship claims all allegiance or none.

102:6.2 (1124.4) The gods of primitive men may have been no more than shadows of themselves; the living God is the divine light whose interruptions constitute the creation shadows of all space.

102:6.3 (1124.5) The religionist of philosophic attainment has faith in a personal God of personal salvation, something more than a reality, a value, a level of achievement, an exalted process, a transmutation, the ultimate of time-space, an idealization, the personalization of energy, the entity of gravity, a human projection, the idealization of self, nature's upthrust, the inclination to goodness, the forward impulse of evolution, or a sublime hypothesis. The religionist has faith in a God of love. Love is the essence of religion and the wellspring of superior civilization.

102:6.4 (1124.6) Faith transforms the philosophic God of probability into the saving God of certainty i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Skepticism may challenge the theories of theology, but confidence in the dependability of personal experience affirms the truth of that belief which has grown into faith.

102:6.5 (1124.7) Convictions about God may be arrived at through wise reasoning, but the individual becomes God-knowing only by faith, through personal experience. In much that pertains to life, probability must be reckoned with, but when contacting with cosmic reality, certainty may be experienced when such meanings and values are approached by living faith. The God-knowing soul dares to say, “I know,” even when this knowledge of God is questioned by the unbeliever who denies such certitude because it is not wholly supported by intellectual logic. To every such doubter the believer only replies, “How do you know that I do not know?”

102:6.6 (1125.1) Though reason can always question faith, faith can always supplement both reason and logic. Reason creates the probability which faith can transform into a moral certainty, even a spiritual experience. God is the first truth and the last fact; therefore does all truth take origin in him, while all facts exist relative to him. God is absolute

로 존재한다. 하느님은 절대 진리이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진리로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을 납득하려면—설명하려면—, 그는 반드시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사실을 탐구해야만 한다.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체험과 사실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무지 사이의 광대한 심해(深海)는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만 연결될 수 있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무한한 진리와 우주적 사실 사이의 조화-협동을 이룰 수 없다.

믿음은 의심을 이겨내거나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의심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긍정적이고 또한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진리가 실수보다, 체험이 이론보다, 영적인 실체가 시간과 공간의 고립된 사실들보다 언제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이 확실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그러한 신자들, 신앙인들이 참된 이 영적 체험의 결과로 맺힌 영의 사회적 열매 속에 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과학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심리학에 있어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있음직한 것이고, 종교에게 있어서는 확실성, 종교적 체험이라는 하나의 실재성이다. 이성은, 있음직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는 철학이, 정확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그 종교적 신앙을 매우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은 경솔한 믿음이라는 구실로 종교적 체험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며, 사람의 지적 자질과 철학적 자질이 단계적으로 더 열등한 지성으로부터 창발하였다는 가정을 고집하는 한 그들은 더욱 뒷걸음질 쳐서 결국에는 모든 생각과 느낌이 철저히 배제된 원시적 생명에서 기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진화의 사실들은,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가 종교적 삶에서 얻는 영적 체험의 확실성이 지니고 있는 실재의 진리에 반하여 열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능적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따지는 것을 멈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실의 관찰과 함께 나란히, 진리의 개념을 너그럽게 견디어내는 논리, 어른다운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과학적 물질주의는,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각각의 우주 현상에 부딪쳐서, 명백하게 우수한 것이 명백하게 열등한 것 속으로 되돌아감으로서, 그 현재의 결함들을 배상해 주려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을 때, 파탄되어 버린다. 일관성에는 목적을 가진 창조자의 활동을 인지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유기체의 진화는 하나의 사실이다; 목적 있는, 곧 진보적인 진화는 진리이며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화들의 늘-상승하는 성취가 모순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선택한 과학에 있어서 점점 더 높게 진보되어 갈수록, 그는 최극 마음의 통치에 대한 조화우주 진리를 위하여 물질주의적 사실의 이론들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삶을 값싸게 만든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필사자 각자를

truth. As truth one may know God, but to understand — to explain — God, one must explore the fact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vast gulf between the experience of the truth of God and ignorance as to the fact of God can be bridged only by living faith. Reason alone cannot achieve harmony between infinite truth and universal fact.

102:6.7 (1125.2) Belief may not be able to resist doubt and withstand fear, but faith is always triumphant over doubting, for faith is both positive and living. The positive always has the advantage over the negative, truth over error, experience over theory, spiritual realities over the isolated facts of time and space.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is spiritual certainty consists in the social fruits of the spirit which such believers, faithers, yield as a result of this genuine spiritual experience. Said Jesus: “If you love your fellows as I have loved you, then sha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102:6.8 (1125.3) To science God is a possibility, to psychology a desirability, to philosophy a probability, to religion a certainty, an actu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Reason demands that a philosophy which cannot find the God of probability should be very respectful of that religious faith which can and does find the God of certitude. Neither should science discount religious experience on grounds of credulity, not so long as it persists in the assumption that man's intellectual and philosophic endowments emerged from increasingly lesser intelligences the further back they go, finally taking origin in primitive life which was utterly devoid of all thinking and feeling.

102:6.9 (1125.4) The facts of evolution must not be arrayed against the truth of the reality of the certainty of the spiritual experience of the religious living of the God-knowing mortal. Intelligent men should cease to reason like children and should attempt to use the consistent logic of adulthood, logic which tolerates the concept of truth alongside the observation of fact. Scientific materialism has gone bankrupt when it persists, in the face of each recurring universe phenomenon, in refunding its current objections by referring what is admittedly higher back into that which is admittedly lower. Consistency demands the recognition of the activities of a purposive Creator.

102:6.10 (1125.5) Organic evolution is a fact; purposive or progressive evolution is a truth which makes consistent the otherwise contradictory phenomena of the ever-ascending achievements of evolution. The higher any scientist progresses in his chosen science, the more will he abandon the theories of materialistic fact in favor of the cosmic truth of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Mind. Materialism cheapens human life; the gospel of Jesus

엄청나게 증진시키고 숭고하게 고양시킨다. 필사자 실존은 인간의 위로 뻗음과 신성한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아래로 뻗음이 만나는 실체의 실현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혹적인 체험 속에 존재하듯이 시각화(視覺化) 되어야만 한다.

제 7 장. 신성한 것에 대한 확신감

자아-실존적이신 우주 아버지는 또한 자아-설명적이지다; 모든 이성적 필사자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 계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만일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으며; 아들관계는 아버지신분을 확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체험이다. 그 우주는 어디에서나 변화를 겪는다. 변화하는 우주는 종속적인 우주이다; 그러한 창조는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유한(有限)한 우주는 궁극자와 절대자에게 온통 종속된다. 우주와 하느님은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이다. 그 원인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며; 그 결과는 시간-공간이며 초월적이지만 영원히 변화하고 항상 성장한다.

하느님은 한 분이고 그리고 우주 안에서 자아-원인이 되는 오직 유일한 사실이다. 그는 물체들과 존재들에 대한 전체 창조의 계층과 계획과 목적의 비밀이시다. 어디에서나 변화하는 우주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들,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기질에 의해서 규제되고 안정된다. 하느님의 사실, 신성한 법칙은 변함이 없으며; 하느님의 진리, 그가 우주와 가지는 관계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에 언제까지도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 계시이다.

하느님 없이 종교를 창안하려는 사람들은 아무 없이 과일을 모으려는, 부모 없이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들과 같다. 너희는 원인이 없는 결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이신 이만이 원인이 없으시다. 종교적 체험의 사실은 하느님을 내포하며, 개인적 체험의 그러한 하느님은 반드시 개인적 신(神)이어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의 화학 공식에게 기도하거나, 수학 방정식에게 탄원하거나, 가상적 추측을 경배하거나, 가설을 믿고 속을 털어놓거나, 일련의 수행과정과 교통하거나, 추상 개념을 섬기거나, 또는 어떤 법칙과 사랑에 넘치는 우애관계를 가질 수 없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많은 특색들이 비종교적인 근원으로부터 자라날 수 있다. 사람은 지적으로 하느님을 부정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충실하며 효심이 있고 정직하며 심지어는 이상적일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영적 자연본성 위에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많은 가치들을 접목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체험은 생존되는 가치들, 하느님을 알아감과 하느님께로 상승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인간적 체험 속에는 영적인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사회적인 열매들만이 맺힌다. 생존을 위한 자양물이 마음과 영 두 가지의 기원적인 신성한 자질의 뿌리로부터 흡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접목이 열매의 본성을 결정한다.

tremendously enhances and supernally exalts every mortal. Mortal existence must be visualized as consisting in the intriguing and fascinating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the meeting of the human upreach and the divine and saving downreach.

7. THE CERTITUDE OF THE DIVINE

102:7.1 (1126.1) The Universal Father, being self-existent, is also self-explanatory; he actually lives in every rational mortal. But you cannot be sure about God unless you know him; sonship is the only experience which makes fatherhood certain. The universe is everywhere undergoing change. A changing universe is a dependent universe; such a creation cannot be either final or absolute. A finite universe is wholly dependent on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The universe and God are not identical; one is cause, the other effect. The cause is absolute, infinite, eternal, and changeless; the effect, time-space and transcendental but ever changing, always growing.

102:7.2 (1126.2) God is the one and only self-caused fact in the universe. He is the secret of the order, plan, and purpose of the whole creation of things and beings. The everywhere-changing universe is regulated and stabilized by absolutely unchanging laws, the habits of an unchanging God. The fact of God, the divine law, is changeless; the truth of God, his relation to the universe, is a relative revelation which is ever adaptable to the constantly evolving universe.

102:7.3 (1126.3) Those who would invent a religion without God are like those who would gather fruit without trees, have children without parents. You cannot have effects without causes; only the I AM is causeless. The fact of religious experience implies God, and such a God of personal experience must be a personal Deity. You cannot pray to a chemical formula, supplicate a mathematical equation, worship a hypothesis, confide in a postulate, commune with a process, serve an abstraction, or hold loving fellowship with a law.

102:7.4 (1126.4) True, many apparently religious traits can grow out of nonreligious roots. Man can, intellectually, deny God and yet be morally good, loyal, filial, honest, and even idealistic. Man may graft many purely humanistic branches onto his basic spiritual nature and thus apparently prove his contentions in behalf of a godless religion, but such an experience is devoid of survival values, God-knowingness and God-ascension. In such a mortal experience only social fruits are forthcoming, not spiritual. The graft determines the nature of the fruit, notwithstanding that the living sustenance is drawn from the roots of original

종교의 지적인 특징은 확실성이다; 철학적 특징은 일관성이고; 사회적인 열매들은 사랑과 봉사이다.

하느님을 아는 개별존재는 현대 시대의 미신, 전통 그리고 물질주의적 성향의 미로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려움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하거나 장애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방해물에 봉착해 왔고 그것들을 극복하였으며, 그것들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겨내었으며,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의 고지(高地)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깊이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들을 끌어 모으고 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과 교묘함 때문에 확실성에서의 그 어떤 느낌들을 강력히 주장하기를 두려워한다. 결점을 찾아내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반대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는 그 어떤 아무런 지성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질문에 대답하고 이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마음의 눈부신 재기(才氣)가 요구된다; 신앙의 확실성은 그러한 모든 피상적인 논쟁들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위대한 기법이다.

만약에 과학이나 철학 또는 사회학이 참된 종교의 선지자들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감히 독단적인 상태가 된다면,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이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확실성에 대한 더욱 선견지명이 있는 독단적인 태도로 그러한 인정할 수 없는 독단적인 태도에 답변해야만 한다. 만약에 신앙인의 개인적인 체험이 독단에 의해 도전될 받게 된다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 신앙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도전할 수 없는 독단, 곧 자신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실재적 자녀관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분별불가적인 유일한 실체, 절대는 감히 일관되게 독단적으로 될 수 있다. 독단적으로 되려는 자들이, 만약 일관성이 있다면, 머지않아 에너지에서의 절대자, 진리에서의 우주자, 그리고 사랑에서의 무한자의 품안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비종교적 접근이 그것의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하여 신앙의 확실성에 도전하려고 생각한다면, 영을 체험한 그 사람은 과학의 사실들과 철학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들에 대한 독단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와 철학자의 의식 속에 있는 체험들이다.

우리는 모든 현존들 중에서 가장 불가피한, 모든 사실들 중에서 가장 실재적인, 모든 진리들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고 모든 가치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든 우주 체험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divine endowment of both mind and spirit.

102:7.5 (1126.5) The intellectual earmark of religion is certainty; the philosophical characteristic is consistency; the social fruits are love and service.

102:7.6 (1126.6) The God-knowing individual is not one who is blind to the difficulties or unmindful of the obstacles which stand in the way of finding God in the maze of superstition, tradition, and materialistic tendencies of modern times. He has encountered all these deterrents and triumphed over them, surmounted them by living faith, and attained the highlands of spiritual experience in spite of them. But it is true that many who are inwardly sure about God fear to assert such feelings of certainty because of the multiplicity and cleverness of those who assemble objections and magnify difficulties about believing in God. It requires no great depth of intellect to pick flaws, ask questions, or raise objections. But it does require brilliance of mind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solve these difficulties; faith certainty is the greatest technique for dealing with all such superficial contentions.

102:7.7 (1127.1) If science, philosophy, or sociology dares to become dogmatic in contending with the prophets of true religion, then should God-knowing men reply to such unwarranted dogmatism with that more farseeing dogmatism of the certainty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 know what I have experienced because I am a son of I AM.” If the personal experience of a faither is to be challenged by dogma, then this faith-born son of the experiencible Father may reply with that unchallengeable dogma, the statement of his actual sonship with the Universal Father.

102:7.8 (1127.2) Only an unqualified reality, an absolute, could dare consistently to be dogmatic. Those who assume to be dogmatic must, if consistent, sooner or later be driven into the arms of the Absolute of energy, the Universal of truth, and the Infinite of love.

102:7.9 (1127.3) If the nonreligious approaches to cosmic reality presume to challenge the certainty of faith on the grounds of its unproved status, then the spirit experienter can likewise resort to the dogmatic challenge of the facts of science and the beliefs of philosophy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likewise unproved; they are likewise experi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cientist or the philosopher.

102:7.10 (1127.4) Of God, the most inescapable of all presences, the most real of all facts, the most living of all truths, the most loving of all friends, and the most divine of all values, we have the right to be the most certain of all universe experiences.

제 8 장. 종교의 징표들

종교의 실체와 효력에 대한 가장 높은 증거는 인간 체험의 사실 속에 들어있다; 말하자면, 자연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의심하며, 자아-보존의 강한 본능과 죽음 이후의 생존 갈망을 태생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받은 인간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힘과 개인의 보호와 지도에 대한 그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기꺼이 전적으로 신뢰하려 한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하나의 중심적 진리이다. 그 힘 또는 개인이 이러한 보호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두 종교도 의견이 같지 않다; 사실 종교들은 모두 다 소 의견이 다르다.

진화적인 척도에서는 그 어떤 종교라도 지위에 관한 한, 도덕적 심판과 윤리적 기준에 의해 판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 어떤 종교도 유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적 문화를 점점 더 복돋우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에 의해 더욱 복돋아진다. 우리는 종교를 그에 수반되는 문명의 지위에 따라서 판결할 수는 없다; 한 문명에서의 종교가 갖는 순수성과 고결성에 따라서 실제적 본성을 추정하는 것이 더 좋았다. 세상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종교적 스승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영원한 실체를 믿는 구원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에 세상의 지혜는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시대들의 종교들 속에 있는 차이는 도덕적 가치들과 윤리적 관계들 그리고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그의 상이한 이해에 따라서 그리고 실체에 대한 사람의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윤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내부적인 영적 그리고 종교적 발전의 진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영원한 사회적 또는 인종적 거울이다. 사람은 자신이 알았던 최상의 용어, 가장 심오한 관념들과 가장 높은 이상으로 항상 하느님을 생각해 왔다. 심지어는 역사적인 종교도 그것의 하느님 개념을 가장 높게 이해된 그것의 가치들로부터 항상 창조해 왔다. 지성을 가진 모든 창조체들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느님의 이름을 부여한다.

종교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언어로 축소될 때, 언제든지 문명과 진화적 발전을 윤리적 문화와 도덕적 진보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감히 비판하였다.

개인적 종교가 인간 도덕의 진화를 앞서는 반면, 제도적인 종교는 인간 종족들의 천천히 바뀌는 사회관계보다도 변함없이 뒤쳐져 있음이 기록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보수적으로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선지자들이 보통 종교적 발전에서 민족을 이끌었다; 신학자들은 보통 그들이 뒤돌아 제

8. THE EVIDENCES OF RELIGION

102:8.1 (1127.5) The highest evidence of the reality and efficacy of religion consists in the *fact of human experience*; namely, that man, naturally fearful and suspicious, innately endowed with a strong instinct of self-preservation and craving survival after death, is willing fully to trust the deepest interests of his present and future to the keeping and direction of that power and person designated by his faith as God. That is the one central truth of all religion. As to what that power or person requires of man in return for this watchcare and final salvation, no two religions agree; in fact, they all more or less disagree.

102:8.2 (1127.6) Regarding the status of any religion in the evolutionary scale, it may best be judged by its moral judgments and its ethical standards. The higher the type of any religion, the more it encourages and is encouraged by a constantly improving social morality and ethical culture. We cannot judge religion by the status of its accompanying civilization; we had better estimate the real nature of a civilization by the purity and nobility of its religion. Many of the world's most notable religious teachers have been virtually unlettered. The wisdom of the world is not necessary to an exercise of saving faith in eternal realities.

102:8.3 (1127.7) The difference in the religions of various ages is wholly dependent on the difference in man's comprehension of reality and on his differing recognition of moral values, ethical relationships, and spirit realities.

102:8.4 (1127.8) Ethics is the external social or racial mirror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otherwise unobservable progress of internal spiritual and religious developments. Man has always thought of God in the terms of the best he knew, his deepest ideas and highest ideals. Even historic religion has always created its God conceptions out of its highest recognized values. Every intelligent creature gives the name of God to the best and highest thing he knows.

102:8.5 (1128.1) Religion, when reduced to terms of reason and intellectual expression, has always dared to criticize civilization and evolutionary progress as judged by its own standards of ethical culture and moral progress.

102:8.6 (1128.2) While personal religion precedes the evolution of human morals, it is regretfully recorded that institutional religion has invariably lagged behind the slowly changing mores of the human races. Organized religion has proved to be conservatively tardy. The prophets have usually led the people in religious development; the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왔다. 종교는, 내적인 곧 개인적 체험의 문제이며, 결코 종족들의 지적 진화보다 훨씬 멀리 앞서서 발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는 소위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에 호소함으로써는 결코 강화될 수 없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원시적인 마술의 종교들을 돌이켜 불러내는 것이다. 참된 종교는 그들이 내세우는 기적들과 함께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계시된 종교는 결코 기적을 권위에 대한 증거로 지목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종교는 언제까지나 그리고 항상 개인적 체험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둔다. 그리고 가장 높은 너희 종교인 예수의 삶은 바로 그러한 개인적 체험이었다: 그는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 필사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육신으로의 한 번의 짧은 삶 동안,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이었으며, 한편 마찬가지로 바로 그 인간의 체험 속에서, 무한한 최극위의 완전한 혼의 충만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람을 발견하는 하느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땅에서 살았던 삶—그것이 종교이며, 나아가 지금까지 네바돈의 우주에서 계시된 최고의 종교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theologians have usually held them back. Religion, being a matter of inner or personal experience, can never develop very far in advance of the intellectual evolution of the races.

102:8.7 (1128.3) But religion is never enhanced by an appeal to the so-called miraculous. The quest for miracles is a harking back to the primitive religions of magic. True religion has nothing to do with alleged miracles, and never does revealed religion point to miracles as proof of authority. Religion is ever and always rooted and grounded in personal experience. And your highest religion, the life of Jesus, was just such a personal experience: man, mortal man, seeking God and finding him to the fullness during one short life in the flesh, while in the same human experience there appeared God seeking man and finding him to the full satisfaction of the perfect soul of infinite supremacy. And that is religion, even the highest yet reveal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 the earth life of Jesus of Nazareth.

102:8.8 (1128.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3 편 종교적 체험의 실체

⇨ 102

유랜시아 책

10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3 편 종교적 체험의 실체

색션

소개

- 제 1 장. 종교의 철학
- 제 2 장. 종교와 개별존재
- 제 3 장. 종교와 인종
- 제 4 장. 영적 교제
- 제 5 장. 이상의 기원
- 제 6 장. 철학적 조화-협동
- 제 7 장. 과학과 종교
- 제 8 장. 철학과 종교
- 제 9 장. 종교의 핵심

PAPER 103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SECTIONS

Introduction

- 1. Philosophy of Religion
- 2. Religion and the Individual
- 3. Religion and the Human Race
- 4. Spiritual Communion
- 5. The Origin of Ideals
- 6. Philosophic Co-ordination
- 7. Science and Religion
- 8. Philosophy and Religion
- 9. The Essence of Religion

소개

사람의 참된 종교적 반응들 전체는 경배 보조자가 베푸는 초기 사명활동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또한 지혜 보조자에 의해 검열을 받는다. 사람의 첫 번째 초(超)마음 자질은 우주 창조 영의 성령 안에서 개인성 순환회로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증여 또는 조절자들의 우주적 증여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 영향력은 윤리와 종교 그리고 영성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가 이루어진 뒤에는, 종교적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수용력의 확대를 위하여, 해방시키는 진리의 영이 엄청난 기여를 한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에서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생각 조절자들은 보다 높은 유형의 인간적 종교 통찰력 개발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생각 조절자는 그것을 통하여 유한한 창조체가 한계가-없는 신(神), 우주 아버지에 대한 확실성과 신성을 신앙으로-어렵듯이 볼 수 있는 조화우주 창문이다.

인간 종족들의 종교적 경향들은 타고난 것이

INTRODUCTION

103:0.1 (1129.1) ALL of man's truly religious reactions are sponsored by the early ministry of the adjutant of worship and are censored by the adjutant of wisdom. Man's first supermind endowment is that of personality encirclement in the Holy Spirit of the Universe Creative Spirit; and long before either the bestowals of the divine Sons or the universal bestowal of the Adjusters, this influence functions to enlarge man's viewpoint of ethics, religion, and spirituality. Subsequent to th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e liberated Spirit of Truth makes mighty contributions to the enlargement of the human capacity to perceive religious truths. As evolution advances on an inhabited world, the Thought Adjusters increasing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higher types of human religious insight. The Thought Adjuster is the cosmic window through which the finite creature may faith-glimpse the certainties and divinities of limitless Deity, the Universal Father.

103:0.2 (1129.2) The religious tendencies of the

다; 그것들은 우주적으로 현시되고 걸로 보기에 자연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원시적인 종교들은 그 유래에서 항상 진화적이다. 자연적인 종교 체험이 진보하기를 계속하면 그에 따라, 진리의 주기적인 계시가, 그것이 없었다면 행성 진화의 느리게-움직일, 그 과정을 마침표로 끊어준다.

오늘날 유란시아에는 네 종류의 종교들이 있다:

1. 자연적 또는 진화적 종교.
2. 초자연적 또는 계시적 종교.
3. 자연적 종교와 초자연적 종교가 다양하게 섞인, 실천적 또는 현재 종교.
4. 철학적 종교들, 사람이 만들었거나 철학적으로 용의주도한 신학적 교리들과 이성으로 창출된 종교들.

제 1 장. 종교의 철학

사회적 또는 인종적 집단 속에 이루어진 종교적 체험의 합일은 개별존재 속에 내주하는 하느님 단편(斷片)의 동일한 자연본성으로부터 도출된다. 다른 사람의 반영에 그의 사심-없는 관심을 사람 안에 기원시키게 하는 그것이 이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성의 독특성—어떤 두 필사자도 똑같지 않음—때문에, 어떤 두 인간 존재도 자기들 마음속에 거주하는 신성(神性)을 갖는 영의 안내와 충동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필사자들 집단이 영적인 합일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코 철학적 확실성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체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20세기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종교에 대하여 5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들을 내세웠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실체 안에서, 각각의 인간 존재는 자기 안에 내주하는 하느님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신성한 충동에 대한 자신만의 체험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종교를 정의한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은 독특할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인간존재의 종교 철학과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필사자가 동료 필사자의 종교 철학과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러한 현상은 이 두 존재들이 철학적인 종교적 해석에 대한 자신들의 유사성과 관계된 문제들에 접하는 비슷한 종교적 체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너희의 종교가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인 반면, 너희가 너희 종교적 삶을 자기중심적인—한정되어지고 이기적이며 반(反)사회적인—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종교적 체험들(다른 다양한 필사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의 지식에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한다.

human races are innate; they are universally manifested and have an apparently natural origin; primitive religions are always evolutionary in their genesis. As natural religious experience continues to progress, periodic revelations of truth punctuate the otherwise slow-moving course of planetary evolution.

103:0.3 (1129.3) On Urantia, today, there are four kinds of religion:

103:0.4 (1129.4) 1. Natural or evolutionary religion.

103:0.5 (1129.5) 2. Supernatural or revelatory religion.

103:0.6 (1129.6) 3. Practical or current religion, varying degrees of the admixture of natural and supernatural religions.

103:0.7 (1129.7) 4. Philosophic religions, man-made or philosophically thought-out theologic doctrines and reason-created religions.

1. PHILOSOPHY OF RELIGION

103:1.1 (1129.8) The unity of religious experience among a social or racial group derives from the identical nature of the God fragment indwelling the individual. It is this divine in man that gives origin to his unselfish interest in the welfare of other men. But since personality is unique — no two mortals being alike — it inevitably follows that no two human beings can similarly interpret the leadings and urges of the spirit of divinity which lives within their minds. A group of mortals can experience spiritual unity, but they can never attain philosophic uniformity. And this diversity of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thought and experience is shown by the fact that twentieth-century theologians and philosophers have formulated upward of five hundred different definitions of religion. In reality, every human being defines religion in the terms of his own experiential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impulses emanating from the God spirit that indwells him, and therefore must such an interpretation be unique and wholly different from the religious philosophy of all other human beings.

103:1.2 (1130.1) When one mortal is in full agreement with the religious philosophy of a fellow mortal, that phenomenon indicates that these two beings have had a similar *religious experience* touching the matters concerned in their similarity of philosophic religious interpretation.

103:1.3 (1130.2) While your religion is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it is most important that you should be exposed to the knowledge of a vast number of other religious experiences (the diverse interpretations of other and diverse mortals) to the end that you may prevent your religious life from becoming egocentric — circumscribed, selfish, and unsocial.

종교가 처음에는 어떤 원시적인 믿음이고,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가치들에 대한 추구가 뒤따라 오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합리주의는 오류를 범한다. 종교는 시원적으로 가치들에 대한 추구이며, 그 다음에 해석적인 믿음들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람들은 믿음들—해석들에 대해서보다는 종교적인 가치들—목표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여 종교가 수백 가지의 모순되는 믿음들—신조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혼란된 현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치들과 목표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것은 일정한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들 대부분을 포기하거나 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종교는 종교적 신념들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한다. 신학은 종교를 산출하지 못한다; 신학적인 철학을 낳는 것은 종교이다.

종교가 가치들에 대한 이해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종교적 체험의 신앙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잘못된 것을 너무 깊이 믿어왔다는 것으로 종교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는 체험과 종교적 생각 위에 기초를 둔다; 즉 종교의 철학인 신학은 그 체험을 해석하기 위한 정직한 시도이다. 그러한 해석에서 비롯된 신념들은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며, 또는 진리와 실수의 혼합일 수도 있다.

영적 가치들의 실현과 인지는 하나의 체험이며 그 체험은 초(超)관념적이다. 하느님-의식함으로 부르기로 우리가 작성한 이 “감각”, “느낌”, “직관”, 또는 “체험”을 정의하는 데 채택할 수 있는 단어는, 그 어떤 인간 언어에도 없다. 사람 속에 거주하는 하느님의 영은 개인성 존재가 아니지만—조절자는 전(前)개인적 존재이다—이는 가치를 제시하고, 신성(神性)의 향기를 발산하며, 가장 높고 무한한 감각에서 개인적이다. 만약에 하느님이 적어도 개인적이지 아니라면, 그는 의식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의식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이하일 것이다.

제 2 장. 종교와 개별존재

종교는 인간 마음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인간 의식 속에 나타나기 전에 체험 속에서 실현되어 왔다. 어린아이는 출생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약 9개월 전부터 실존되었다. 그러나 종교의 “탄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계적인 창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출생일”이 존재하게 된다. 너희는 만일 “다시 태어나지”—영으로 태어나지—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적인 출생들 대부분은 영의 심한 고뇌를 수반하며 심리적 혼란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들 대부분이 “격렬한 산통”과 “분만”에 있어서의 다른 비정상적 상황들로부터 특징 지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 다른 영적 출생들은, 비록 그 어떤 종교적인 발전도 의식적인 노력과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결심 없이는 일어

103:1.4 (1130.3) Rationalism is wrong when it assumes that religion is at first a primitive belief in something which is then followed by the pursuit of values. Religion is primarily a pursuit of values, and then there formulates a system of interpretative beliefs. It is much easier for men to agree on religious values — goals — than on beliefs — interpretations. And this explains how religion can agree on values and goals while exhibiting the confusing phenomenon of maintaining a belief in hundreds of conflicting beliefs — creeds. This also explains why a given person can maintain his religious experience in the face of giving up or changing many of his religious beliefs. Religion persists in spite of revolutionary changes in religious beliefs. Theology does not produce religion; it is religion that produces theologic philosophy.

103:1.5 (1130.4) That religionists have believed so much that was false does not invalidate religion because religion is founded on the recognition of values and is validated by the faith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Religion, then, is based on experience and religious thought; theology, the philosophy of religion, is an honest attempt to interpret that experience. Such interpretative beliefs may be right or wrong, or a mixture of truth and error.

103:1.6 (1130.5) The realization of the recognition of spiritual values is an experience which is superideational. There is no word in any human language which can be employed to designate this “sense,” “feeling,” “intuition,” or “experience” which we have elected to call God-consciousness. The spirit of God that dwells in man is not personal — the Adjuster is prepersonal — but this Monitor presents a value, exudes a flavor of divinity, which is personal in the highest and infinite sense. If God were not at least personal, he could not be conscious, and if not conscious, then would he be infrahuman.

2. RELIGION AND THE INDIVIDUAL

103:2.1 (1130.6) Religion is functional in the human mind and has been realized in experience prior to its appearance in human consciousness. A child has been in existence about nine months before it experiences *birth*. But the “birth” of religion is not sudden; it is rather a gradual emergence. Nevertheless, sooner or later there is a “birth day.” You do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you have been “born again” — born of the Spirit. Many spiritual births are accompanied by much anguish of spirit and marked psychological perturbations, as many physical births are characterized by a “stormy labor” and other abnormalities of “delivery.” Other spiritual births are a natural and normal growth of the recognition

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적 체험의 증진으로 있는 최극 가치들에 대한 인지에서의 하나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이다. 종교는 결코 소극적인 체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종교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갈등, 감정적 억압, 그리고 기분적인 동요의 결과로서 일생에서 후기에 발생하는 종교적 에피소드들을 특징짓는 소위 변환 체험이라 불리는 그러한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의식(意識) 속에서 자라날 만큼 자신들의 부모들에 의해 그렇게 보살펴진 그러한 개인들은, 정신적 고비, 정서적 격변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동료관계에 대하여 그러한 의식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동료 필사자들을 홀려보아서는 안 된다.

계시된 종교의 씨가 싹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화의 토양은 매우 일찍부터 사회의식을 기원시킨 도덕적 본성이다. 어린이의 도덕적 본성에 있어서 최초의 자극은 성욕이나 죄의식 또는 개인적인 자부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공정성 그리고 친절함을 향한 충동—어떤 사람의 이웃들에 대해 도움이 되는 사명활동—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러한 초기의 도덕적 각성이 성숙될 때, 모순과 격변 그리고 위기들로부터 비교적 속박을 받지 않는 종교적 삶의 단계적 발달이 발생한다.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자아-탐구와 이타적 충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매우 일찍부터 체험하며, 그리고 많은 경우 하느님-의식의 첫 체험은 그러한 도덕적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인간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결과로서 얻어질 수 있다.

어린이의 심리 상태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수많은 필사자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긍정적이라고 말해질 때, 그의 도덕적 충동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렇게 마음의 힘이 창발하는 것은 그에게 생각 조절자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 없으면, 정상적인 어린이의 마음은, 종교적인 의식의 창발에 따라, 도덕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사명활동을 향하여, 부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죄와 범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종교 체험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갈등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인 결정과 수고 그리고 인간 의지의 기능은 반드시 따라온다.

도덕적인 선택은 대개 다소간의 도덕적인 갈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러한 최초의 갈등은 이기주의의 강한 충동과 이타주의의 자극 사이에 존재한다. 생각 조절자는 자기본위적인 동기를 갖는 개인성 가치들을

of supreme values with an enhancement of spiritual experience, albeit no religious development occurs without conscious effort and positive and individual determinations. Religion is never a passive experience, a negative attitude. What is termed the “birth of religion” i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so-called conversion experiences which usually characterize religious episodes occurring later in life as a result of mental conflict, emotional repression, and temperamental upheavals.

103:2.2 (1131.1) But those persons who were so reared by their parents that they grew up in the consciousness of being children of a loving heavenly Father, should not look askance at their fellow mortals who could only attain such consciousness of fellowship with God through a psychological crisis, an emotional upheaval.

103:2.3 (1131.2) The evolutionary soil in the mind of man in which the seed of revealed religion germinates is the moral nature that so early gives origin to a social consciousness. The first promptings of a child's moral nature have not to do with sex, guilt, or personal pride, but rather with impulses of justice, fairness, and urges to kindness — helpful ministry to one's fellows. And when such early moral awakenings are nurtured, there occurs a gradual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life which is comparatively free from conflicts, upheavals, and crises.

103:2.4 (1131.3) Every human being very early experiences something of a conflict between his self-seeking and his altruistic impulses, and many times the first experience of God-consciousness may be attained as the result of seeking for superhuman help in the task of resolving such moral conflicts.

103:2.5 (1131.4) The psychology of a child is naturally positive, not negative. So many mortals are negative because they were so trained. When it is said that the child is positive, reference is made to his moral impulses, those powers of mind whose emergence signals the arrival of the Thought Adjuster.

103:2.6 (1131.5) In the absence of wrong teaching, the mind of the normal child moves positively, in the emergence of religious consciousness, toward moral righteousness and social ministry, rather than negatively, away from sin and guilt. There may or may not be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but there are always present the inevitable decisions, effort, and function of the human will.

103:2.7 (1131.6) Moral choosing is usually accompanied by more or less moral conflict. And this very first conflict in the child mind is between the urges of egoism and the impulses of altruism.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disregard the

무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표와 하늘의 왕국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이타적인 충동을 조금 더 높게 인정한다.

도덕적 존재가 이기적으로 되려는 충동에 직면하여 사심없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였을 때, 그것은 원시적인 종교적 체험이다. 어떤 동물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은 인간적이며 또한 종교적이다. 그것은 하느님-의식함의 사실을 포용하며 사회적인 봉사의 충동, 사람이 형제신분을 이루는 기초를 보여준다. 마음이 자유의지의 행동에 의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선택하였을 때, 그러한 결정이 종교 체험을 구성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도덕적인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발달되어 이타적인 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그에게는 이미 하나의 강력하고도 잘 통합된 이기주의적 본성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적 상황이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사이, “죄를 지닌 옛 사람”과 은혜의 “새로운 본성” 사이에 투쟁이 있다는 이론을 일으키게 한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매우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아-봉사하려는 충동을, 자기-자신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는 자신의 의리를, 자기 자신의 밖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하느님—으로 이타적이 되도록,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기울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정말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이타적 욕구들은 내주 하는 생각 조절자의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기원되고, 이 조절자는 하느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영 감시자의 충동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타적이 되려는, 동료-창조체를 염두에 두는, 그러한 충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이 겪는 초기의 근본적인 체험이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개인성 통일을 이루지 못할 때, 이타적인 충동은 자아의 복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과도하게 발전될 수도 있다. 잘못 인도된 양심은 많은 갈등과 염려와 슬픔 그리고 끝없는 인간적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 3 장. 종교와 인종

영과 꿈 그리고 다양한 다른 미신들에 대한 믿음이 모두 원시적인 종교들의 진화적인 기원 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면, 너희는 씨족 또는 부족이 가진 단결의 영이 끼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인 관계 속에는 초기 인간 마음의 도덕적인 본성 속에 있는 자기본위적-이타적 갈등에 도전을 주는, 엄격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하였다. 영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를 씨족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때가 이르면, 그러한 종교들은 개인성구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물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

personality values of the egoistic motive but does operate to place a slight preference upon the altruistic impulse as leading to the goal of human happiness and to the joys of the kingdom of heaven.

103:2.8 (1131.7) When a moral being chooses to be unselfish when confronted by the urge to be selfish, that is primitive religious experience. No animal can make such a choice; such a decision is both human and religious. It embraces the fact of God-consciousness and exhibits the impulse of social service, the basis of the brotherhood of man. When mind chooses a right moral judgment by an act of the free will, such a decision constitutes a religious experience.

103:2.9 (1131.8) But before a child has developed sufficiently to acquire moral capacity and therefore to be able to choose altruistic service, he has already developed a strong and well-unified egoistic nature. And it is this factual situation that gives rise to the theory of the struggle between the “higher” and the “lower” natures, between the “old man of sin” and the “new nature” of grace. Very early in life the normal child begins to learn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103:2.10 (1131.9) Man tends to identify the urge to be self-serving with his ego — himself. In contrast he is inclined to identify the will to be altruistic with some influence outside himself — God. And indeed is such a judgment right, for all such nonself desires do actually have their origin in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and this Adjuster is a fragment of God. The impulse of the spirit Monitor is realized in human consciousness as the urge to be altruistic, fellow-creature minded. At least this is the early and fundamental experience of the child mind. When the growing child fails of personality unification, the altruistic drive may become so overdeveloped as to work serious injury to the welfare of the self. A misguided conscience can become responsible for much conflict, worry, sorrow, and no end of human unhappiness.

3. RELIGION AND THE HUMAN RACE

103:3.1 (1132.1) While the belief in spirits, dreams, and diverse other superstitions all played a part in the evolutionary origin of primitive religions, you should not overlook the influence of the clan or tribal spirit of solidarity. In the group relationship there was presented the exact social situation which provided the challenge to the egoistic-altruistic conflict in the moral nature of the early human mind. In spite of their belief in spirits, primitive Australians still focus their religion upon the clan. In time, such religious concepts tend to personalize, first, as animals, and later, as a

떤 초인간으로 또는 하느님으로 된다. 토tem적인 믿음도 갖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부시맨 같은 열등한 종족들도 자아-이익과 집단-이익 사이의 차이, 세속적인 가치들과 신성한 가치들 사이의 기초적인 차이를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집단은 종교 체험의 근원이 아니다. 사람의 초기 종교에 대한 이러한 모든 원시적 공헌들의 영향에 상관없이, 참된 종교적 충동은, 의지로 하여금 사심-없는 상태가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순전한 영 현존들 속에 그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다.

후대의 종교는 자연적인 경이로움과 기적들, 미(未)개인적 초자연성에 대한 원시적인 믿음 안에서 예시된다. 그러나 진화하는 종교는, 개별존재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개인적인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고, 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곧 요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가 되도록 되어 있다.

종교는 사람의 환경을 변경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오늘날 필사자들 속에서 발견되는 그 종교의 대부분은 이것을 행하는 데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것이 되어왔다. 환경이 너무나도 자주 종교를 지배해 왔다.

모든 시대들의 종교 속에서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은, 신학적 독단론이나 혹은 철학적 이론에 관한 사고(思考)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들과 사회적 의미들에 관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마술의 요소가 도덕의 개념에 의해 대체되면서 그에 따라 종교는 순조롭게 진화한다.

사람은 신비의 힘, 마술, 자연 경배, 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물 경배의 미신들을 통하여 다양한 예식으로 진화하였는데, 개별존재의 종교적 태도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씨족의 집단적 반응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예식들은 부족 신앙들로 초점화구현 되고 형태화 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두려움들과 신앙들이 하느님들로 개인성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종교적 진화들 속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충동은 항상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하나는 인간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성한—은 시대들의 변화 속에서 종교가 살아남도록 보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많은 파괴적 경향들과 악의적인 반목에 의해서 너무나도 자주 사멸될 위기에 처했다.

제 4 장. 영적 교제

사회적 행사와 종교적 모임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종교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제의 분위기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적 관계적-연합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성한 것과 친교를 나누는 느낌을 창출하며, 이것이 집단

superman or as a God. Even such inferior races as the African Bushmen, who are not even totemic in their beliefs, do have a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f-interest and the group-interest, a primitive distinction between the values of the secular and the sacred. But the social group is not the source of religious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influence of all these primitive contributions to man's early religion, the fact remains that the true religious impulse has its origin in genuine spirit presences activating the will to be unselfish.

103:3.2 (1132.2) Later religion is foreshadowed in the primitive belief in natural wonders and mysteries, the impersonal mana. But sooner or later the evolving religion requires that the individual should make some personal sacrifice for the good of his social group, should do something to make other people happier and better. Ultimately, religion is destined to become the service of God and of man.

103:3.3 (1132.3) Religion is designed to change man's environment, but much of the religion found among mortals today has become helpless to do this. Environment has all too often mastered religion.

103:3.4 (1132.4) Remember that in the religion of all ages the experience which is paramount is the feeling regarding moral values and social meanings, not the thinking regarding theologic dogmas or philosophic theories. Religion evolves favorably as the element of magic is replaced by the concept of morals.

103:3.5 (1132.5) Man evolved through the superstitions of mana, magic, nature worship, spirit fear, and animal worship to the various ceremonials whereby the religious attitude of the individual became the group reactions of the clan. And then these ceremonies became focalized and crystallized into tribal beliefs, and eventually these fears and faiths became personalized into gods. But in all of this religious evolution the moral element was never wholly absent. The impulse of the God within man was always potent. And these powerful influences — one human and the other divine — insured the survival of religion throughout the vicissitudes of the ages and that notwithstanding it was so often threatened with extinction by a thousand subversive tendencies and hostile antagonisms.

4. SPIRITUAL COMMUNION

103:4.1 (1133.1)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a social occasion and a religious gathering is that in contrast with the secular the religious is pervaded by the atmosphere of *communion*. In this way human association generates a feeling of

적 경배의 시발점이다.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교제에 있어서 가장 초기적인 유형이었으며, 그래서 초기의 종교들은 예식으로 바친 희생 제물의 일부분을 그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반드시 먹도록 제공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교에서도 주님의 만찬이 이러한 교제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 교제의 분위기는 자아를-탐구하는 자기와 내주 하는 영 감시자의 이타적 충동과의 갈등에 있어서 산뜻하고도 위안이 되는 휴식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경배—사람의 형제신분의 창발로 결국 생겨난 하느님 현존의 실천 관행—의 전주곡이다.

원시인이 자신의 하느님과의 교제가 이미 단절되었음을 느낄 때, 그는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다정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떤 종류의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지하였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였으며, 진리가 이상을 증강시켰고, 이것이 개별 종교인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상들은 등비수열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것들에 맞추어 생활하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등차수열로 증강되기 때문이다.

죄의식(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은 영적 교제의 단절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그러한 궁지로부터의 탈출은 오직 어떤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들이 반드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실현을 통하여 두루 가능하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들에 맞추어 살 수는 없지만,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점점 더 그를 닮아갈 수 있다.

예수는 희생 제물과 죄 값에 대한 모든 예식들을 제거하였다. 그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선언함으로써 즉: 창조체-창조자 관계를 자녀-부모 기초 위에 놓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허구적인 죄의식의 근본과 우주에서의 고독감을 파괴하였다. 하느님은 자신의 필사자 아들들과 딸들에게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한 긴밀한 가족 관계에 맞지 않는 모든 예식들은 언제까지나 폐기되었다.

아버지 하느님은 실재적 덕목이나 가치성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동기—창조체의 목적과 의도—를 인식하여 사람을 자기 자녀로서 다룬다. 그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적-연합의 하나이며 신성한 사랑에 의해 활성화된다.

제 5 장. 이상의 기원

주로 감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유래되는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초기의 진화적인 마음에 의해서 기원된다. 더 많은 사회적 봉사의 긍정적인 충동과 이타주의의 이상주의

fellowship with the divine,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group worship. Partaking of a common meal was the earliest type of social communion, and so did early religions provide that some portion of the ceremonial sacrifice should be eaten by the worshipers. Even in Christianity the Lord's Supper retains this mode of communion. The atmosphere of the communion provides a refreshing and comforting period of truce in the conflict of the self-seeking ego with the altruistic urge of the indwelling spirit Monitor. And this is the prelude to true worship —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which eventuates in the emergence of the brotherhood of man.

103:4.2 (1133.2) When primitive man felt that his communion with God had been interrupted, he resorted to sacrifice of some kind in an effort to make atonement, to restore friendly relationship. The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leads to the discovery of truth, and truth augments ideals, and this creates new problems for the individual religionists, for our ideals tend to grow by geometrical progression, while our ability to live up to them is enhanced only by arithmetical progression.

103:4.3 (1133.3) The sense of guilt (not the consciousness of sin) comes either from interrupted spiritual communion or from the lowering of one's moral ideals. Deliverance from such a predicament can only come through the realization that one's highest moral ideals are not necessarily synonymous with the will of God. Man cannot hope to live up to his highest ideals, but he can be true to his purpose of finding God and becoming more and more like him.

103:4.4 (1133.4) Jesus swept away all of the ceremonials of sacrifice and atonement. He destroyed the basis of all this fictitious guilt and sense of isolation in the universe by declaring that man is a child of God; the creature-Creator relationship was placed on a child-parent basis. God becomes a loving Father to his mortal sons and daughters. All ceremonials not a legitimate part of such an intimate family relationship are forever abrogated.

103:4.5 (1133.5) God the Father deals with man his child on the basis, not of actual virtue or worthiness, but in recognition of the child's motivation — the creature purpose and intent. The relationship is one of parent-child association and is actuated by divine love.

5. THE ORIGIN OF IDEALS

103:5.1 (1133.6) The early evolutionary mind gives origin to a feeling of social duty and moral obligation derived chiefly from emotional fear. The more positive urge of social service and the

가 인간 마음속에 내주 하는 신성한 영의 직접적인 충동으로부터 도출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자신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것을 부인하려는 충동—의 관념·이상은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시인은 자신에게 매우 가까운 자들, 자신에게 친절한 자들만을 이웃으로 간주한다; 종교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이웃은 씨족, 부족, 국가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인간성 전체,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해야 하는 정도까지 포용하도록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키셨다.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인간 존재들 속에는 이 가르침이 도덕이라고—옳다고—그에게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이러한 이상을 거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시인한다.

모든 인간들은 이타적이고 사심-없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적 충동을 인지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충동의 기원이 물질적인 마음의 자연적인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종교인들은 필사자 마음의 정말로 사심-없는 충동이 생각 조절자라는 내부의 영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자기-의지와 자아가-아닌-다른-의지 사이의 이들 초기 갈등들에서의 사람의 해석은,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잘 통합된 개인성만이, 싹트기 시작한 사회의식과 자기 열망에 대한 여러 형태의 다툼을 중재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의 이웃과 마찬가지로의 권리를 갖고 있다. 어느 쪽도 개별존재의 관심과 봉사를 배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인간 죄의식에서의 가장 초기 유형에 기원을 준다.

인간의 행복은 자아의 자기 욕망과 보다 높은 자아(신성한 영)의 이타적 충동이 집대성하고 감독하는 개인성의 통합된 의지에 의해서 조화-협동되고 화해될 때에만 성취된다. 진화적인 사람의 마음은, 영적 통찰력—진정한 종교적 반영 작용—에 입각한 사심-없는 충동의 도덕적 성장과 감정적 충동들의 자연적인 확대 사이의 싸움을 중재하는 복잡한 문제에 항상 봉착해 있다.

자아를 위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자아들을 위한 균등한 유익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시간-공간 틀 안에서는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반목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번의 짧은 삶 속에서는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예수는 그러한 모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왕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하느님과-같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죽음 이전과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노력이다. 죽음 이후의 삶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필사자 실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도 없다.

idealism of altruism are derived from the direct impulse of the divine spirit indwelling the human mind.

103:5.2 (1133.7) This idea-ideal of doing good to others — the impulse to deny the ego something for the benefit of one's neighbor — is very circumscribed at first. Primitive man regards as neighbor only those very close to him, those who treat him neighborly; as religious civilization advances, one's neighbor expands in concept to embrace the clan, the tribe, the nation. And then Jesus enlarged the neighbor scope to embrace the whole of humanity, even that we should love our enemies. And there is something inside of every normal human being that tells him this teaching is moral — right. Even those who practice this ideal least, admit that it is right in theory.

103:5.3 (1134.1) All men recognize the morality of this universal human urge to be unselfish and altruistic. The humanist ascribes the origin of this urge to the natural working of the material mind; the religionist more correctly recognizes that the truly unselfish drive of mortal mind is in response to the inner spirit leadings of the Thought Adjuster.

103:5.4 (1134.2) But man's interpretation of these early conflicts between the ego-will and the other-than-self-will is not always dependable. Only a fairly well unified personality can arbitrate the multiform contentions of the ego cravings and the budding social consciousness. The self has rights as well as one's neighbors. Neither has exclusive claims upon the attention and service of the individual. Failure to resolve this problem gives origin to the earliest type of human guilt feelings.

103:5.5 (1134.3) Human happiness is achieved only when the ego desire of the self and the altruistic urge of the higher self (divine spirit) are coordinated and reconciled by the unified will of the integrating and supervising personality. The mind of evolutionary man is ever confronted with the intricate problem of refereeing the contest between the natural expansion of emotional impulses and the moral growth of unselfish urges predicated on spiritual insight — genuine religious reflection.

103:5.6 (1134.4) The attempt to secure equal good for the self and for the greatest number of other selves presents a problem which cannot always be satisfactorily resolved in a time-space frame. Given an eternal life, such antagonisms can be worked out, but in one short human life they are incapable of solution. Jesus referred to such a paradox when he said: “Whosoever sha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for the sake of the kingdom, shall find it.”

103:5.7 (1134.5) The pursuit of the ideal — the striving to be Godlike — is a continuous effort before death and after. The life after death is no different in the essentials than the mortal existence. Everything

이 일생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미래 일생의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 실제 종교는, 자연적 죽음의 관문을 거쳐 통과한 결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는 고귀한 성격에서의 모든 미덕을 가지리라는 헛된 희망을 북돋음으로서 일어나는 도덕적 태만과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는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가 일생을 빌려 사는 동안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들을 앞잡아보지 않는다. 모든 필사자의 소득은 불멸적 생존 체험에서 첫 단계들을 강화하는 데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이타적 충동들이 단지 자신의 자연적인 집단 본능에 불과하다고 배웠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이상주의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혼의 이러한 보다 높은 충동들이 자신의 필사자 마음속에 내주 하는 영적 세력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배울 때 그는 고상하게 되고 크게 기세를 얻는다.

인간은 영원하고 신성한 어떤 존재가 자기 속에 살면서 애쓰고 있음을 일단 충만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신을 넘어서 멀리 높이 들어 올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상들이 초인간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유효하게 하고, 우리의 이타적인 신념들,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느낌을 현실로 만든다.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 권역 안에서, 자유의 지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비록 죽음이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능이신 하느님의 위대하고 준엄한 통치권 밑에서 힘도 없이 어떤 도움도 없는 노예가 아니며 더구나 기계론자의 조화우주 결정론의 어떤 도움도 없는 숙명의 희생자도 아니다. 사람은 최고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고안건축가이다.

그러나 인간은 압력에 의해서 구원되거나 고귀하게 되지 않는다. 영의 성장은 진화하는 혼속으로부터 솟아난다. 압력은 개인성을 일그러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코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육적인 압력도 오직 부정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비참한 체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모든 외부적 압력들이 최소화될 때 극대화된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 인간은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국가의 압력이 최소화될 때 최고로 발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보적 공동체에서 가정, 사회 기관, 교회 그리고 국가가 나설 자리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회의 종교 집단에 속한 한 구성원이 그러한 집단의 요구들에 순응할 때, 그는 종교적 신념으로 이루어진 진리들과 종교 체험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충만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만 한다. 종교 집단의 안전은 신학적인 확일성이 아니라 영적인 합일에 달려있다. 종교 집단은 “자유사상가”가 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교회

we do in this life which is good contributes directly to the enhancement of the future life. Real religion does not foster moral indolence and spiritual laziness by encouraging the vain hope of having all the virtues of a noble character bestowed upon one as a result of passing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True religion does not belittle man's efforts to progress during the mortal lease on life. Every mortal gain is a direct contribution to the enrichment of the first stages of the immortal survival experience.

103:5.8 (1134.6) It is fatal to man's idealism when he is taught that all of his altruistic impulses are merely the development of his natural herd instincts. But he is ennobled and mightily energized when he learns that these higher urges of his soul emanate from the spiritual forces that indwell his mortal mind.

103:5.9 (1134.7) It lifts man out of himself and beyond himself when he once fully realizes that there lives and strives within him something which is eternal and divine. And so it is that a living faith in the superhuman origin of our ideals validates our belief that we are the sons of God and makes real our altruistic convictions, the feelings of the brotherhood of man.

103:5.10 (1134.8) Man, in his spiritual domain, does have a free will. Mortal man is neither a helpless slave of the inflexible sovereignty of an all-powerful God nor the victim of the hopeless fatality of a mechanistic cosmic determinism. Man is most truly the architect of his own eternal destiny.

103:5.11 (1135.1) But man is not saved or ennobled by pressure. Spirit growth springs from within the evolving soul. Pressure may deform the personality, but it never stimulates growth. Even educational pressure is only negatively helpful in that it may aid in the prevention of disastrous experiences. Spiritual growth is greatest where all external pressures are at a minimum.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Man develops best when the pressures of home, community, church, and state are least. But this must not be construed as meaning that there is no place in a progressive society for home, social institutions, church, and state.

103:5.12 (1135.2) When a member of a social religious group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a group, he should be encouraged to enjoy religious liberty in the full expression of his own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truths of religious belief and the facts of religious experience. The security of a religious group depends on spiritual unity, not on theological uniformity. A religious group should be able to enjoy the liberty of freethinking without having to become

든지 살아 계신 하느님께 경배하고, 사람의 형제 신분을 정당화하며, 그 구성원들로부터 교리로 인한 모든 압력을 과감하게 제거할 때 위대한 희망이 거기에 존재한다.

“freethinkers.” There is great hope for any church that worships the living God, validates the brotherhood of man, and dares to remove all creedal pressure from its members.

제 6 장. 철학적 조화-협동

6. PHILOSOPHIC CO-ORDINATION

신학은 인간 영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연구이다; 결코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그 개인적 표현에서는 심리학과, 체계적인 묘사에서는 철학과 어느 정도 병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신학은 항상 너의 종교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다.

103:6.1 (1135.3) Theology is the study of the actions and reactions of the human spirit; it can never become a science since it must always be combined more or less with psychology in its personal expression and with philosophy in its systematic portrayal. Theology is always the study of *your* religion; the study of another's religion is psychology.

인간이 외부로부터 그의 우주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접근할 때, 그는 다양한 물리 과학을 만들어낸다; 그가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내부로부터 접근할 때, 그는 신학과 형이상학을 창출하게 된다. 사물과 존재로 이루어진 우주에 접근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큰길에서의 발견과 가르침 사이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도록 예정된 많은 불일치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철학이라는 후일의 기법이 발달한다.

103:6.2 (1135.4) When man approaches the study and examination of his universe from the *outside*, he brings into being the various physical sciences; when he approaches the research of himself and the universe from the *inside*, he gives origin to theology and metaphysics. The later art of philosophy develops in an effort to harmonize the many discrepancies which are destined at first to appear between the findings and teachings of these two diametrically opposite avenues of approaching th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종교는 영적인 관점, 인간 체험의 내면성에서의 깨달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영적 본성은 우주의 밖을 안으로 돌려놓는 기회를 그에게 잘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개인성 체험의 내면성으로부터 배타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모든 창조가 자연본성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말이다.

103:6.3 (1135.5) Religion has to do with the spiritual viewpoint, the awareness of the *insideness* of human experience. Man's spiritual nature affords him the opportunity of turning the universe outside in. It is therefore true that, viewed exclusively from the insideness of personality experience, all creation appears to be spiritual in nature.

인간이 자신의 연관된 마음 인식과 물리적 감각들로 이루어진 물질적 자질들을 통하여 우주를 분석적으로 검열할 때, 조화우주는 기계적이고 에너지-물질로 보인다. 실체를 연구하는 그러한 기법은 우주의 안을 바깥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103:6.4 (1135.6) When man analytically inspects the universe through the material endowments of his physical senses and associated mind perception, the cosmos appears to be mechanical and energy-material. Such a technique of studying reality consists in turning the universe inside out.

우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철학 개념은 물질주의 또는 영성주의의 가설 위에 세워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고(思考) 체계들은, 우주적으로 적용될 때, 왜곡된 상태로 조화우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는 안에서 밖으로 돌려놓은 우주와 접촉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돌려진 우주의 자연본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과학이든 종교든 독립된 상태에서 그 자체로는 그리고 그 스스로는 인간의 철학과 신성한 계시의 조명의 인도함 없이 우주적 진리들과 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답득을 얻을 수가 결코 없다.

103:6.5 (1135.7) A logical and consistent philosophic concept of the universe cannot be built up on the postulations of either materialism or spiritism, for both of these systems of thinking, when universally applied, are compelled to view the cosmos in distortion, the former contacting with a universe turned inside out, the latter realizing the nature of a universe turned outside in. Never, then, can either science or religion, in and of themselves, standing alone, hope to gain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universal truths and relationships without the guidance of human philosophy and the illumination of divine revelation.

인간의 내부 영은 그것의 표현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항상 마음의 심리 작용과 기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실체에 대한 인간의 외부적 체험은 체험하는 개인성의 마음의식에 입각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과 물질적인

103:6.6 (1136.1) Always must man's inner spirit depend for its expression and self-realization upon the mechanism and technique of the mind. Likewise must man's outer experience of material reality be predicated on the mind consciousness

체험, 내부적인 체험과 외부적인 체험은 항상 마음 기능과 상관관계되며, 그들의 의식적 실현에 따라 그렇게 마음 활동에 조건을 받는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물질을 체험한다; 혼(魂)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지만 이러한 체험은 그의 마음속에서 인식하게 된다. 지성은 인간 체험 전체를 조화시키는 것이고 항상-제시되어 있는 조정 장치이며 본질특성권한을 부여하는 존재이다. 에너지-물체들과 영 가치들 두 가지는 모두 의식이라는 마음 매개자를 통한 해석에 의해서 채색된다.

과학과 종교 사이의 보다 조화된 조화-협동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겪는 어려움은 물질들과 존재들의 모론시아 세계에 개재하는 권역에 대한 너희의 철저한 무지에서 기인된다. 지역우주는 실체 현시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의 정도 또는 단계들 즉: 물질과 모론시아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다. 모론시아적 견지의 접근은 물질적인 과학의 발견과 종교 마음의 활동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를 없앤다. 이성(理)은 학문의 납득 기법이다; 신앙은 종교의 통찰 기법이다; 모타는 모론시아 차원의 기법이다. 모타는 불충분한 성장을 보정하기 시작하는 초물질적 실체 감수성인데, 그것의 실체인 지식-이성과 그것의 본질인 신앙-통찰력을 위해 소유한다. 모타는 물질적인 개인성들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다른 실체 인식에 대한 초(超)철학적 화해이다; 부분적으로는 육신의 물질적 생명으로 살아남는 체험에 입각한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과학과 종교의 폭넓게 분리된 권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갖는 바람직한 상태를 알고 있다; 형이상학은 잘 이해된 이러한 틈을 연결시키려는 인간의 무익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의 형이상학은 계몽보다는 더 많은 혼란을 체험해 왔다. 형이상학은 인간이 선의(善意)로 하였음을 나타내지만 모론시아의 모타의 부재(不在)를 보상하려는 무익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형이상학은 실패를 증명해 왔으며; 인간은 모타를 감지할 수 없다. 계시는 물질세계 안에 있는 모타의 진리에 대한 민감성의 부재를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계시는 진화적인 구체에서 이성에 의해 발달된 형이상학의 혼란을 엄중하게 규명한다.

과학은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인 환경, 에너지-물질세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종교는 영적인 가치들로 구성된 조화우주에 대한 인간의 체험이다; 철학은 폭넓게 분리된 이러한 개념들이 발견한 것들을, 조화우주를 향한 정당화면서도 조화된 태도와 같은 어떤 것이 되도록 조직하고 상관관계 시키려는 인간 마음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계시에 의해서 규명되는 철학은 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모타-형이상학-를

of the experiencing personality. Therefore are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the inner and the outer, human experiences always correlated with the mind function and conditioned, as to their conscious realization, by the mind activity. Man experiences matter in his mind; he experiences spiritual reality in the soul but becomes conscious of this experience in his mind. The intellect is the harmonizer and the ever-present conditioner and qualifier of the sum total of mortal experience. Both energy-things and spirit values are colored by their interpretation through the mind media of consciousness.

103:6.7 (1136.2) Your difficulty in arriving at a more harmonious co-ordination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is due to your utter ignorance of the intervening domain of the morontia world of things and beings. The local universe consists of three degrees, or stages, of reality manifestation: matter, morontia, and spirit. The morontia angle of approach erases all divergence between the findings of the physical sciences and the functioning of the spirit of religion. Reason is the understanding technique of the sciences; faith is the insight technique of religion; mota is the technique of the morontia level. Mota is a supermaterial reality sensitivity which is beginning to compensate incomplete growth, having for its substance knowledge-reason and for its essence faith-insight. Mota is a superphilosophical reconciliation of divergent reality perception which is nonattainable by material personalities; it is predicated, in part, on the experience of having survived the material life of the flesh. But many mortals have recognized the desirability of having some method of reconcil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widely separated domains of science and religion; and metaphysics is the result of man's unavailing attempt to span this well-recognized chasm. But human metaphysics has proved more confusing than illuminating. Metaphysics stands for man's well-meant but futile effort to compensate for the absence of the mota of morontia.

103:6.8 (1136.3) Metaphysics has proved a failure; mota, man cannot perceive. Revelation is the only technique which can compensate for the absence of the truth sensitivity of mota in a material world. Revelation authoritatively clarifies the muddle of reason-developed metaphysics on an evolutionary sphere.

103:6.9 (1136.4) Science is man's attempted study of his physical environment, the world of energy-matter; religion is man's experience with the cosmos of spirit values; philosophy has been developed by man's mind effort to organize and correlate the findings of these widely separated concepts into something like a reasonable and unified attitude toward the cosmos. Philosophy, clarified by revelation, functions acceptably in the

대신하는 인간의 이성의 좌절과 실패라는 현존 속에서 만족스럽게 활동한다.

초기의 인간은 에너지 차원과 영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았다. 의지적인 것으로부터 수학적인 것을 분리시키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보라색 인종과 그들의 안드-사람 후손들이었다. 문명화된 인간은 무생물과 생물 사이를 구분시킨 초기 그리스인들과 수메르인들의 발자취를 점점 더 많이 따라갔다. 그리고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철학은 영 개념과 에너지 개념 사이의 계속 넓어지는 하구(河口)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시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들은 최극자 안에서 일치된다.

상상력과 추측이 과학의 영역의 확장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이성에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이성이 안정시키는 영향력이며 도움을 주는 시녀(侍女)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언제나 신앙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의 둘 모두의 현상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 그렇게 그릇되게 과학과 종교라 불리는 것들이 항상 있어왔고 또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다.

과학에 대한 인간의 미완성 과학과 종교에 대한 연약한 이해력 그리고 형이상학에 대한 미성숙한 시도들로부터, 그는 철학이라는 자신의 공식들을 형성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그리고 현대인은 물질과 영 사이를 연결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형이상학적 관계를 결렬시키지만 않았더라면, 물질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모론시아만(灣)에 다리를 놓으려는 형이상학의 실패가 없었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우주에 대한 홀륭하고도 매력 있는 철학을 세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필사 사람은 모론시아 마음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계시는 우주에 대한 논리적 철학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자신의 확실하고 안정된 장소에 대한 만족스러운 납득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그토록 다급하게 필요한 개념적 자료에 있어서의 이러한 결핍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계시는 모론시아 만에 다리를 놓는 진화적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모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과 이성은 하나의 논리적인 우주를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다. 모타의 통찰력이 없으면, 필사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들 속에서 선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식별할 수 없다.

인간의 철학이 물질세계를 향하여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 그것은 합리주의적 또는 자연주의적 상태가 된다. 철학이 두드러지게 영적인 차원으로 기울어질 때, 그것은 이상주의적 또는 심지어 신비적 상태가 된다. 철학이 형이상학에 기댈 정도의 불행한 사태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회의론적인, 혼란된 상태가 된다. 지나간 시대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간의 지식과 지적 평가들은 이러한 세가지의 왜곡된 인식에 빠져들었다. 철학은 그러한 실체에 대한 해석을 논리의 직선 모양으로 무작정 내비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실체의 타원형 대

absence of mota and in the presence of the breakdown and failure of man's reason substitute for mota — metaphysics.

103:6.10 (1136.5) Early man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energy level and the spirit level. It was the violet race and their Andite successors who first attempted to divorce the mathematical from the volitional. Increasingly has civilized man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e earliest Greeks and the Sumerians who distinguished between the inanimate and the animate. And as civilization progresses, philosophy will have to bridge ever-widening gulfs between the spirit concept and the energy concept. But in the time of space these divergencies are at one in the Supreme.

103:6.11 (1137.1) Science must always be grounded in reason, although imagination and conjecture are helpful in the extension of its borders. Religion is forever dependent on faith, albeit reason is a stabilizing influence and a helpful handmaid. And always there have been, and ever will be, misleading interpretations of the phenomena of both the natural and the spiritual worlds, sciences and religions falsely so called.

103:6.12 (1137.2) Out of his incomplete grasp of science, his faint hold upon religion, and his abortive attempts at metaphysics, man has attempted to construct his formulations of philosophy. And modern man would indeed build a worthy and engaging philosophy of himself and his universe were it not for the breakdown of his all-important and indispensable metaphysical connection between the worlds of matter and spirit, the failure of metaphysics to bridge the morontia gulf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Mortal man lacks the concept of morontia mind and material; and *revelation* is the only technique for atoning for this deficiency in the conceptual data which man so urgently needs in order to construct a logical philosophy of the universe and to arrive at a satisfying understanding of his sure and settled place in that universe.

103:6.13 (1137.3) Revelation is evolutionary man's only hope of bridging the morontia gulf. Faith and reason, unaided by mota, cannot conceive and construct a logical universe. Without the insight of mota, mortal man cannot discern goodness, love, and truth in the phenomena of the material world.

103:6.14 (1137.4) When the philosophy of man leans heavily toward the world of matter, it becomes rationalistic or *naturalistic*. When philosophy inclines particularly toward the spiritual level, it becomes *idealistic* or even mystical. When philosophy is so unfortunate as to lean upon metaphysics, it unfailingly becomes *skeptical*, confused. In past ages, most of man's knowledge and intellectual evaluations have fallen into one of these three distortions of perception. Philosophy dare not project its interpretations of reality in the

칭성과, 그리고 모든 관계 개념의 본질적 곡률(曲率)로서 다루는 데에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필사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은 과학의 이성과 종교의 신앙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제공되는 진리 통찰 위에 논리적으로 기초를 두어야만 한다. 인간은 충분한 형이상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자신의 실패와 모론시아의 모타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 이러한 연합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이룩할 수 있다.

제 7 장. 과학과 종교

과학은 이성에 의해 지속되고, 종교는 신앙에 의해 지속된다. 신앙은, 이성에 입각하지는 않더라도 이성적이다; 논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논리에 의해 촉진된다. 신앙은 이상적인 철학에 의해서조차도 조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말로 과학과 함께 그러한 철학의 바로 그 근원이다. 인간의 종교적 통찰력인 신앙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지시를 받는데, 영이신 하느님의 영적인 조절자 현존과 함께 오직 개인적인 인간 체험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증진될 수 있다.

참된 구원은 필사자 마음을 사물 정체화구현에서부터 모론시아 연락의 영역을 통과하여 영적인 상관관계의 높은 우주 지위에 이르게 하는 신성한 진화의 기법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직관적 본능이 이 세상의 진화 속에서 도리에 맞는 지식의 출현보다 앞서는 것처럼, 영적인 직관적 통찰의 현시활동이 천상(天上)의 진화에 대한 숭고한 계획, 일시적 존재인 인간의 잠재를 변환시켜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인 영원한 인간의 실재성과 신성을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그리고 영의 이성과 체험의 전조(前兆)가 된다.

그러나 상승하는 사람이 하느님 체험을 위하여 안쪽으로 그리고 파라다이스 쪽으로 도달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는 물질적 조화우주를 남득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위하여 바깥쪽으로 그리고 공간 쪽으로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세속적 일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우주와 초우주 상승 체험은, 에너지 변질과 물질 변환의 연구와 그 어떤 작은 차이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영이지만, 신(神)은 합일이며, 신(神)의 합일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가치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통제자와 파라다이스 섬의 에너지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주 실체의 이들 두 현상은 공동 행위자의 마음 관계들 안에서 완전하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신(神) 안에 있는 유한 차원 위에서 통합된다.

체험적 철학의 중재에 의한 과학적 태도와 종교적 통찰력의 연합은 인간의 긴 파라다이스-상승 체험의 일부이다. 수학의 추정과 통찰력의 확실성

linear fashion of logic; it must never fail to reckon with the elliptic symmetry of reality and with the essential curvature of all relation concepts.

103:6.15 (1137.5) The highest attainable philosophy of mortal man must be logically based on the reason of science, the faith of religion, and the truth insight afforded by revelation. By this union man can compensate somewhat for his failure to develop an adequate metaphysics and for his inability to comprehend the mota of the morontia.

7. SCIENCE AND RELIGION

103:7.1 (1137.6) Science is sustained by reason, religion by faith. Faith, though not predicated on reason, is reasonable; though independent of logic, it is nonetheless encouraged by sound logic. Faith cannot be nourished even by an ideal philosophy; indeed, it is, with science, the very source of such a philosophy. Faith, human religious insight, can be surely instructed only by revelation, can be surely elevated only by personal mortal experience with the spiritual Adjuster presence of the God who is spirit.

103:7.2 (1137.7) True salvation is the technique of the divine evolution of the mortal mind from matter identification through the realms of morontia liaison to the high universe status of spiritual correlation. And as material intuitive instinct precedes the appearance of reasoned knowledge in terrestrial evolution, so does the manifestation of spiritual intuitive insight presage the later appearance of morontia and spirit reason and experience in the supernal program of celestial evolution, the business of transmuting the potentials of man the temporal into the actuality and divinity of man the eternal, a Paradise finaliter.

103:7.3 (1138.1) But as ascending man reaches inward and Paradiseward for the God experience, he will likewise be reaching outward and spaceward for an energy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cosmos. The progression of science is not limited to the terrestrial life of man; his universe and superuniverse ascension experience will to no small degree be the study of energy transmutation and material metamorphosis. God is spirit, but Deity is unity, and the unity of Deity not only embraces the spiritual valu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but is also cognizant of the energy facts of the Universal Controller and the Isle of Paradise, while these two phases of universal reality are perfectly correlated in the mind relationships of the Conjoint Actor and unified on the finite level in the emerg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103:7.4 (1138.2) The union of the scientific attitude and the religious insight by the mediation of experiential philosophy is part of man's long Paradise-

은 최극자의 최대 달성에 약간 못 미치는 모든 체험 차원 위에서 항상, 마음 논리적 속성의 조화하는 기능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논리는 과학의 발견들과 종교의 통찰들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성의 과학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 둘 모두가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도달할 수도 있는 결론에 상관없이, 진리가 인도할 수 있는 어느 곳이나 따라가기를 진지하게 바라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논리는 철학의 기법, 그것의 표현 방법이다. 참된 과학의 권역 안에서, 이성인 진실한 논리에 항상 복종할 수 있다; 참된 종교의 권역 안에서, 신앙은 내부 관점의 바탕에서 볼 때 항상 논리적이며, 설사 그러한 신앙이 과학적 접근에서 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리적이다. 외부로부터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안에서 밖으로 보면, 동일한 그 우주는 온통 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성은 물질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자라나고 신앙은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자라나지만, 논리는 계시에 의해 강화된 철학의 중재를 통하여 안쪽으로의 관점과 바깥쪽으로의 관점 둘 모두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과학과 종교의 안정에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철학의 논리와 평범하게 접촉함을 통하여 과학과 종교는 서로에 대하여 점점 더 관대하게 되고 회의(懷疑)가 점점 줄어든다.

발달하는 과학과 종교 둘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탐색과 담대한 자아-비판, 진화 지위에 있어서의 미완성에 대한 더 많은 깨달음이다. 과학과 종교의 스승들은 양쪽 모두 흔히 너무나도 자아-확신적이고 독단적이다. 과학과 종교는 오직 그들이 지닌 사실들에 대해서만 자아-비판적이 될 수 있다. 사실들의 무대에서 떠나는 순간, 이성은 물러나든지 아니면 거짓 논리 속으로 급속도로 퇴화한다.

진리—조화우주 관계들, 우주 사실들, 그리고 영적인 가치들에 대한 답답—은 진리의 영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가장 잘 소유될 수 있으며 계시에 의해서 가장 잘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는 과학과 종교 중 어떤 것도 창출하지 않는다; 계시의 기능은 과학과 종교를 실체에 대한 진리로 조화-협동시키는 것이다. 계시가 없을 때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필사 사람은, 항상, 형이상학에 대한 자신의 쓸데없는 몸짓에 호소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계시 또는 모른시아 개인성의 모타에 대한 유일한 인간적 대응품이다.

물질적 세계의 과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는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영적인 체명의 종교는, 과학 시대의 문명의 복잡성 속에서 인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형제우애관계 충동의 근원이다. 형이상학이,

ascension experience. The approximations of mathematics and the certainties of insight will always require the harmonizing function of mind logic on all levels of experience short of the maximum attainment of the Supreme.

103:7.5 (1138.3) But logic can never succeed in harmonizing the findings of science and the insights of religion unless both the scientific and the religious aspects of a personality are truth dominated, sincerely desirous of following the truth wherever it may lead regardless of the conclusions which it may reach.

103:7.6 (1138.4) Logic is the technique of philosophy, its method of expression. Within the domain of true science, reason is always amenable to genuine logic; within the domain of true religion, faith is always logical from the basis of an inner viewpoint, even though such faith may appear to be quite unfounded from the inlooking viewpoint of the scientific approach. From outward, looking within, the universe may appear to be material; from within, looking out, the same universe appears to be wholly spiritual. Reason grows out of material awareness, faith out of spiritual awareness, but through the mediation of a philosophy strengthened by revelation, logic may confirm both the inward and the outward view, thereby effecting the stabilization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Thus, through common contact with the logic of philosophy, may both science and religion become increasingly tolerant of each other, less and less skeptical.

103:7.7 (1138.5) What both developing science and religion need is more searching and fearless self-criticism, a greater awareness of incompleteness in evolutionary status. The teacher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often altogether too self-confident and dogmatic. Science and religion can only be self-critical of their *facts*. The moment departure is made from the stage of facts, reason abdicates or else rapidly degenerates into a consort of false logic.

103:7.8 (1138.6) The truth — an understanding of cosmic relationships, universe facts, and spiritual values — can best be had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and can best be criticized by *revelation*. But revelation originates neither a science nor a religion; its function is to co-ordinate both science and religion with the truth of reality. Always, in the absence of revelation or in the failure to accept or grasp it, has mortal man resorted to his futile gesture of metaphysics, that being the only human substitute for the revelation of truth or for the mota of morontia personality.

103:7.9 (1139.1) The science of the material world enables man to control, and to some extent dominate, his physical environment. The religion of the spiritual experience is the source of the fraternity impulse which enables men to live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는 계시가, 과학과 종교의 발견들을 위한 일반적인 접합 토대를 제공하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생각 권역이 과학적인 안정성과 종교적인 확실성의 잘 균형 잡힌 철학에 이르도록 논리적으로 관련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필사자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과학과 종교 모두 가정들 위에 입각한다. 모론시아 차원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가정들이 모타 논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최고의 지위인 영적 차원에서는, 실체에 대한 그리고 실체와의 실제적 체험 앞에서 제한적인 증명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지만; 그렇지라도 거기에는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유한적 상태를 크게 뛰어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인간 생각의 모든 분야들은, 사람의 마음 자질이 갖는 구조적 실체 감수성에 의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여지는 어떤 가정들에 입각한다. 과학은 세 가지 즉: 물질과 동작과 생명에 대한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추론 활동의 그 자랑스러운 생애를 시작한다. 종교는 세 가지 즉: 마음과 영 그리고 우주—최극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과학은 공간 속에서 시간의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수학의 생각 권역이 된다. 종교는 유한하고 현세적인 영뿐만 아니라 영원과 최극위의 영(靈)도 다루려고 가정한다. 우주 인식의 이들 두 극단들은 오직 모타 속에서의 긴 체험을 통해서만 기원, 기능, 관계, 실체, 그리고 운명에 대한 비슷한 해석을 산출할 수 있다. 에너지-영 분산에 대한 최고의 조화로운 일곱 주(主) 영들의 회로연결 안에 있다; 그것으로부터의 최초 통일은 최극자의 신(神) 속에 있다; 그것으로부터의 최종자 합일은 스스로 이신 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무한성 안에 있다.

이성은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세계와의 체험에 관한 인식의 결정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신앙은 영적인 의식(意識)—다른 인간적 증명이 불가능한 어떤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활동이다. 논리는 신앙과 이성의 합일이 이루는 종합적인 진리-추구 진행이며, 필사 존재들의 구조적인 마음 자질들, 사물들과 의미들과 가치들에 대한 타고난 인식에 기초한다.

생각 조절자의 현존 안에 영적 실체에 대한 실제 증거가 있지만, 이 현존의 정당성은 외부 세계에 실증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조절자에 대한 인식은 진리에 대한 지적 수용과 선(善)에 대한 초(超)마음 인식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개인성 동기유발에 기초를 둔다.

together in the complexities of the civilization of a scientific age. Metaphysics, but more certainly revelation, affords a common meeting ground for the discoverie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nd makes possible the human attempt logically to correlate these separate but interdependent domains of thought into a well-balanced philosophy of scientific stability and religious certainty.

103:7.10 (1139.2) In the mortal state, nothing can be absolutely proved;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predicated on assumptions. On the morontia level, the postulates of both science and religion are capable of partial proof by mota logic. On the spiritual level of maximum status, the need for finite proof gradually vanishes before the actual experience of and with reality; but even then there is much beyond the finite that remains unproved.

103:7.11 (1139.3) All divisions of human thought are predicated on certain assumptions which are accepted, though unproved, by the constitutive reality sensitivity of the mind endowment of man. Science starts out on its vaunted career of reasoning by *assuming* the reality of three things: matter, motion, and life. Religion starts out with the assumption of the validity of three things: mind, spirit, and the universe — the Supreme Being.

103:7.12 (1139.4) Science becomes the thought domain of mathematics, of the energy and material of time in space. Religion assumes to deal not only with finite and temporal spirit but also with the spirit of eternity and supremacy. Only through a long experience in mota can these two extremes of universe perception be made to yield analogous interpretations of origins, functions, relations, realities, and destinies. The maximum harmonization of the energy-spirit divergence is in the encirclement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first unification thereof, in the Deity of the Supreme; the finality unity thereof, in the infin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I AM.

103:7.13 (1139.5) *Reason* is the act of recognizing the conclusions of consciousness with regard to the experience in and with the physical world of energy and matter. *Faith* is the act of recognizing the validity of spiritual consciousness — something which is incapable of other mortal proof. *Logic* is the synthetic truth-seeking progression of the unity of faith and reason and is founded on the constitutive mind endowments of mortal beings, the innate recognition of things, meanings, and values.

103:7.14 (1139.6) There is a real proof of spiritual reality in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 but the validity of this presence is not demonstrable to the external world, only to the one who thus experiences the indwelling of God. The consciousness of the Adjuster is based on the intellectual reception of truth, the supermind

과학은 물질적 세계를 발견하고, 종교는 그것을 평가하며, 철학은 과학의 물질적 관점을 종교의 영적 개념과 조화-협동시키면서 그 의미 해석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 안에서 과학과 종교가 결코 충만하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제 8 장. 철학과 종교

비록 과학과 철학이 그들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 하느님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개인적인 종교 체험만이 영의 인도를 받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최극 그리고 개인적 신(神)에 대한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느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가정은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 실현 기법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적 실체가 된다.

하느님의 확실성 체험에 관한 혼동은 분리된 개별존재들과 서로 다른 인간 종족들에 의해 얻어진 그 체험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그 관계들로부터 발생된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할 수 있지만, 하느님에 관하여 강연하는 것은 지적이고 철학적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로 나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잘못되기도 한다.

선하고 고귀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결혼에 이른 사랑의 심리학에 관한 필기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어떤 남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시험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통과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의 참된 자연 본성을 살피는 통찰력에서의 불완전성은 그의 사랑의 실체나 혹은 진실성을 조금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가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신앙으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한다면—그러한 체험의 실체가, 과학의 의심하는 암시, 논리의 트집 잡기, 철학의 가설, 아니면 하느님 없는 종교를 창조하려는, 좋은-의미를 지닌 혼들의 영리한 제안들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도 줄어들거나 손상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하느님을 아는 종교인들의 확신은 의심하는 물질주의자의 불확신에 의해 교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의 불확신이 체험적 신자의 견고한 신앙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과학에게나 종교에게나 가장 강력한 공헌을 하려면 철학은 물질주의와 범신주의라는 두 극단을 피해야만 한다. 개인성의 실체—변화의 현존 안에서의 영구성—를 깨닫는 철학만이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고, 물질적 과학과 영적 종교의 이론들 사이의 연락매개자로 봉사할 수 있다.

perception of goodness, and the personality motivation to love.

103:7.15 (1139.7) Science discovers the material world, religion evaluates it, and philosophy endeavors to interpret its meanings while co-ordinating the scientific material viewpoint with the religious spiritual concept. But history is a realm in which science and religion may never fully agree.

8. PHILOSOPHY AND RELIGION

103:8.1 (1140.1) Although both science and philosophy may assume the probability of God by their reason and logic, only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a spirit-led man can affirm the certainty of such a supreme and personal Deity. By the technique of such an incarnation of living truth the philosophic hypothesis of the probability of God becomes a religious reality.

103:8.2 (1140.2) The confusion about the experience of the certainty of God arises out of the dissimilar interpretations and relations of that experience by separate individuals and by different races of men. The experiencing of God may be wholly valid, but the discourse *about* God, being intellectual and philosophical, is divergent and oftentimes confusingly fallacious.

103:8.3 (1140.3) A good and noble man may be consummately in love with his wife but utterly unable to pass a satisfactory written examination on the psychology of marital love. Another man, having little or no love for his spouse, might pass such an examination most acceptably. The imperfection of the lover's insight into the true nature of the beloved does not in the least invalidate either the reality or sincerity of his love.

103:8.4 (1140.4) If you truly believe in God — by faith know him and love him — do not permit the reality of such an experience to be in any way lessened or detracted from by the doubting insinuations of science, the caviling of logic, the postulates of philosophy, or the clever suggestions of well-meaning souls who would create a religion without God.

103:8.5 (1140.5) The certainty of the God-knowing religionist should not be disturbed by the uncertainty of the doubting materialist; rather should the uncertainty of the unbeliever be mightily challenged by the profound faith and unshakable certainty of the experiential believer.

103:8.6 (1140.6) Philosophy, to be of the greatest service to both science and religion, should avoid the extremes of both materialism and pantheism. Only a philosophy which recognizes the reality of personality — permanence in the presence of change — can be of moral value to man, can

계시는 진화하는 철학의 허약함을 위한 보완이다.

serve as a liaison between the theories of material science and spiritual religion. Revelation is a compensation for the frailties of evolving philosophy.

제 9 장. 종교의 핵심

신학은 종교의 지적 내용을 취급하며, 형이상학(계시)은 철학적 측면을 취급한다. 종교적 체험은 종교의 영적인 내용물이다. 종교의 지적 내용이 갖는 신화적 번덕들과 심리적 환상, 실수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정들과 자아-기만의 기법들, 종교의 철학적 내용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사회경제적 오용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교의 영적인 체험은 언제나 참되고 정당하다.

종교는 사고뿐만 아니라 느낌과 행동 그리고 삶으로 행해야만 한다. 사고는 물질적 삶과 더욱 가깝게 관계되며, 온통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성과 과학의 사실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의 영역을 향하는 그러한 비물질적 뻗침에서는 진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사람의 신학이 아무리 착각이고 잘못되더라도, 사람의 종교는 전적으로 진실 되며 영속적으로 참될 수 있다.

불교는 그 기원 형태에 있어서 유란시아의 진화 역사에 두루 일어났던, 하느님 없이 이루어진 최상의 종교들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발전됨에 따라 그것은 하느님이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았다. 신앙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모순이다; 하느님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철학적인 불일치이고 지적인 모순이다.

자연적인 종교의 마술적이고 신화적인 혈통은 후대의 계시 종교와 예수의 종교인 더할 나위 없이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마침내 마술적인 미신들과 신화적 환상들 그리고 전통적인 독선주의의 속박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마술과 신화는, 초(超)물질적 가치들과 존재들의 실존 그리고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후대의 우월한 종교를 위하여 길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비하였다.

종교 체험이 비록 하나의 순수한 영적인 주관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은 우주의 객관적 실체의 가장 높은 영역들을 향한 긍정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 태도를 포용한다. 종교 철학의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들의 우주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절대 사랑에 분별불가하게 의존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신뢰이다. 그러한 참다운 종교 체험은 이상적인 욕구의 철학적 객관화를 훨씬 초월한다; 그것은 실제로 구원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 자신을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만으로 관여한다. 그러한 종교의 특징들은: 최극의 신(神)에

9. THE ESSENCE OF RELIGION

103:9.1 (1140.7) Theology deals with the intellectual content of religion, metaphysics (revelation) with the philosophic aspects. Religious experience is the spiritual content of religion. Notwithstanding the mythologic vagaries and the psychologic illusions of the intellectual content of religion, the metaphysical assumptions of error and the techniques of self-deception, the political distortions and the socioeconomic perversions of the philosophic content of religio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personal religion remains genuine and valid.

103:9.2 (1140.8) Religion has to do with feeling, acting, and living, not merely with thinking. Thinking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material life and should be in the main, but not altogether, dominated by reason and the facts of science and, in its nonmaterial reaches toward the spirit realms, by truth. No matter how illusory and erroneous one's theology, one's religion may be wholly genuine and everlastingly true.

103:9.3 (1141.1) Buddhism in its original form is one of the best religions without a God which has arisen throughout all the evolutionary history of Urantia, although, as this faith developed, it did not remain godless. Religion without faith is a contradiction; without God, a philosophic inconsistency and an intellectual absurdity.

103:9.4 (1141.2) The magical and mythological parentage of natural religion does not invalidate the reality and truth of the later revelational religions and the consummate saving gospel of the religion of Jesus. Jesus' life and teachings finally divested religion of the superstitions of magic, the illusions of mythology, and the bondage of traditional dogmatism. But this early magic and mythology very effectively prepared the way for later and superior religion by assuming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supermaterial values and beings.

103:9.5 (1141.3) Although religious experience is a purely spiritual subjective phenomenon, such an experience embraces a positive and living faith attitude toward the highest realms of universe objective reality. The ideal of religious philosophy is such a faith-trust as would lead man unqualifiedly to depend upon the absolute love of the infinite Fath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Such a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far transcends the philosophic objectification of idealistic desire; it actually takes salvation for granted and concerns itself only with learning and doing the will of the

대한 신앙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랑인데, 그 사랑은 특별히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신학이 종교를 지배할 때 종교는 사라지며; 그것은 생명 대신에 하나의 교리가 된다. 신학의 임무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자아-의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신학은 종교의 체험적인 주장들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해석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종교적 노력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보다 높은 철학에서는, 이성의 지혜가 신앙과 결합하게 된다. 이성과 지혜 그리고 신앙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간적 달성이다. 이성은 인간에게 사실들의 세계, 사물들을 가르쳐주며; 지혜는 그에게 진리의 세계, 관계들을 가르쳐주며; 신앙은 그를 신성의 세계,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신앙은 이성이 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성을 가장 가까이 옮겨주고 그 후에는 충만한 철학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혜와 동행한다; 그 후에 그것은 오직 진리만이 홀로 동행하는 무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우주 여행을 가까이 시작한다.

과학(지식)은 이성이 정당하다는,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는 선천적인(보조 영)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철학(조화-협동의 이해)은 지혜가 정당하다는, 물질적인 우주가 영적인 존재와 조화-협동될 수 있다는 선천적인(지혜의 영)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종교(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대한 진리)는 신앙이 정당하다는, 하느님을 알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선천적인(생각 조절자) 가정 위에 기초를 둔다.

필사자 삶의 실체에 대한 충만한 실현은 이러한 이성과 지혜와 신앙의 가정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가까이 믿으려는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한 삶은 진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그 실존이 물질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객관적 조화우주 실체에 대한 이상이다.

이성이 일단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혜를 드러내며; 지혜가 옳고 그름, 진리와 실수 사이에서 선택하면 그것이 영의 인도를 실증한다. 그리하여 마음과 혼과 영의 작용은 계속 가깝게 연합하며 기능적으로 상호-연관을 이룬다. 이성은 사실적인 지식을 취급한다; 지혜는 철학과 계시를 취급한다; 신앙은 살아있는 영적 체험을 취급한다. 인간은 진리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달성하고 영적인 사랑에 의하여 선(善)에 이른다.

신앙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신비적 느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알도록 이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결과들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참된 종교는 느낌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의 체험이다.

Father in Paradise. The earmarks of such a religion are: faith in a supreme Deity, hope of eternal survival, and love, especially of one's fellows.

103:9.6 (1141.4) When theology masters religion, religion dies; it becomes a doctrine instead of a life. The mission of theology is merely to facilitate th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Theology constitutes the religious effort to define, clarify, expound, and justify the experiential claims of religion, which, in the last analysis, can be validated only by living faith. In the higher philosophy of the universe, wisdom, like reason, becomes allied to faith. Reason, wisdom, and faith are man's highest human attainments. Reason introduces man to the world of facts, to things; wisdom introduces him to a world of truth, to relationships; faith initiates him into a world of divinity, spiritual experience.

103:9.7 (1141.5) Faith most willingly carries reason along as far as reason can go and then goes on with wisdom to the full philosophic limit; and then it dares to launch out upon the limitless and never-ending universe journey in the sole company of TRUTH.

103:9.8 (1141.6) Science (knowledge) is founded on the inherent (adjutant spirit) assumption that reason is valid, that the universe can be comprehended. Philosophy (co-ordinate comprehension) is founded on the inherent (spirit of wisdom) assumption that wisdom is valid, that the material universe can be co-ordinated with the spiritual. Religion (the truth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is founded on the inherent (Thought Adjuster) assumption that faith is valid, that God can be known and attained.

103:9.9 (1141.7)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eality of mortal life consists in a progressive willingness to believe these assumptions of reason, wisdom, and faith. Such a life is one motivated by truth and dominated by love; and these are the ideals of objective cosmic reality whose existence cannot be materially demonstrated.

103:9.10 (1142.1) When reason once recognizes right and wrong, it exhibits wisdom; when wisdom chooses between right and wrong, truth and error, it demonstrates spirit leading. And thus are the functions of mind, soul, and spirit ever closely united and functionally interassociated. Reason deals with factual knowledge; wisdom, with philosophy and revelation; faith, with living spiritual experience. Through truth man attains beauty and by spiritual love ascends to goodness.

103:9.11 (1142.2) Faith leads to knowing God, not merely to a mystical feeling of the divine presence. Faith must not be overmuch influenced by its emotional consequences. True religion is an experience of believing and knowing as well as a

종교적 체험 속에는 영적인 내용물에 비례하는 실체가 존재하며, 그러한 실체는 이성, 과학, 철학, 지혜,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적 성취들을 초월한다. 그러한 체험의 신념은 무너지지 않고; 종교적인 삶의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지식의 확실성은 초인간적이고; 그 만족감들은 최고로 거룩하고, 그 용기는 굴하지 않으며, 그 헌신은 주저함이 없고, 그 충성심은 더 할 나위 없으며, 그 운명은 최종적—영원하고 궁극적이며 우주적—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satisfaction of feeling.

^{103:9.12 (1142.3)} There is a reality in religious experience that is proportional to the spiritual content, and such a reality is transcendent to reason, science, philosophy, wisdom, and all other human achievements. The convictions of such an experience are unassailable; the logic of religious living is incontrovertible; the certainty of such knowledge is superhuman; the satisfactions are superbly divine, the courage indomitable, the devotions unquestioning, the loyalties supreme, and the destinies final — eternal, ultimate, and universal.

^{103:9.13 (1142.4)}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4 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 103

유랜시아 책

10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4 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섹션

소개

제 1 장. 유랜시아의 삼위일체 개념들

제 2 장. 삼위일체 합일과 신(神)의 다수성
(多數性)

제 3 장. 삼위일체들과 삼원일체들

제 4 장. 일곱 삼원일체

제 5 장. 삼극일체

PAPER 104

GROWTH OF THE TRINITY
CONCEPT

SECTIONS

Introduction

1. Urantian Trinity Concepts

2. Trinity Unity and Deity Plurality

3. Trinities and Triunities

4. The Seven Triunities

5. Triodities

소개

게시된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진화적인 종교들의 3원소 믿음들과 혼동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3원소에 대한 관념들은 많은 암시적 관계들로부터 발생되었지만 주로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된 것 때문에, 발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받침점이 움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시인이 오랫동안 셋 이상을 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와 현재,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특정한 자연적 2원소를 제외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3원소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어제와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등이 그것이다. 승리자에게는 세 번의 환호가 주어진다. 죽은 사람은 셋째 날에 묻히며 세 번 물로 씻음으로써 그 귀신을 위로한다.

인간 체험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인 관계적-연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3원소는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신(神)들 또는 그들의 어떤 대리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인간들에게 계시되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인들, 힌두인들, 그리스인들, 이집트인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로마인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전체가 3원소적인 하느님들을 소유하였지만, 이

INTRODUCTION

104:0.1 (1143.1) THE Trinity concept of revealed religion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triad beliefs of evolutionary religions. The ideas of triads arose from many suggestive relationships but chiefly because of the three joints of the fingers, because three legs were the fewest which could stabilize a stool, because three support points could keep up a tent; furthermore, primitive man, for a long time, could not count beyond three.

104:0.2 (1143.2) Aside from certain natural couplets, such as past and present, day and night, hot and cold, and male and female, man generally tends to think in triad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sunrise, noon, and sunset; father, mother, and child. Three cheers are given the victor. The dead are buried on the third day, and the ghost is placated by three ablutions of water.

104:0.3 (1143.3) As a consequence of these natural associations in human experience, the triad made its appearance in religion, and this long before the Paradise Trinity of Deities, or even any of their representatives, had been revealed to mankind. Later on, the Persians, Hindus, Greeks, Egyptians, Babylonians, Romans, and Scandinavians all had triad gods, but these were

것들은 아직 참된 삼위일체들이 아니었다. 3원소 신(神)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기원되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능적인 민족들 대부분 사이에서 한때 나타났다. 때로는 진화적인 3원소 개념이, 제시된 삼위일체 개념과 혼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제 1 장. 유란시아의 삼위일체 개념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깨닫도록 인도한 최초의 유란시아 계시는 약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초의 삼위일체 개념은 행성 반란에 따른 불안정한 시기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발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약 35,000년 후인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데, 그리하여 셋-사람의 삼위일체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존속되었고, 더욱 특별하게는 인도에서 애그니, 베다의 머리 셋 달린 불(火)의 하느님 속에 오랫동안 영속하게 되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계시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교리는 살렘의 현자(賢者)가 자신의 흉갑(胸甲)에 붙인 세 개의 동심원으로 상징화되었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팔레스타인의 베도원들에게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제자들 대부분은 삼위일체가 놀라시아텍의 지고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소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체계 주권자와 별자리 아버지, 그리고 지역우주의 창조자 신(神)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적은 무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파라다이스 관계적-연합에 대한 관념을 희미하게나마 파악하였다.

살렘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삼위일체에 관한 멜기세덱의 교훈이 유라시아 대부분과 북부 아프리카 전역에 점차적으로 전파되었다. 후기의 안드-사람 시대와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3원소와 삼위일체들을 구분하는 것은 대개 힘든 일인데, 그 때에는 두 개념들이 어느 정도 혼합되고 유착되어 있었다.

힌두인들 사이에서의 삼위일체로서의 개념은 존재와 지성 그리고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인도의 후대 개념은 브라마와 시바 그리고 비슈누였다.) 초기의 삼위일체 묘사가 셋 사체들에 의해 인도로 전파된 반면, 삼위일체에 관한 후대의 관념들은 살렘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되었고 이 교리들이 진화적인 3원소 개념들과 합성됨으로써 인도의 원주민 지능인들에 의해 발달되었다.

불교도들의 신앙은 삼위일체로서의 자연본

still not true trinities. Triad deities all had a natural origin and have appeared at one time or another among most of the intelligent peoples of Urantia. Sometimes the concept of an evolutionary triad has become mixed with that of a revealed Trinity; in these instances it is often impossible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1. URANTIAN TRINITY CONCEPTS

104:1.1 (1143.4) The first Urantian revelation leading to the comprehension of the Paradise Trinity was made by the staff of Prince Caligastia about one-half million years ago. This earliest Trinity concept was lost to the world in the unsettled times following the planetary rebellion.

104:1.2 (1143.5) The second presentation of the Trinity was made by Adam and Eve in the first and second gardens. These teachings had not been wholly obliterated even in the times of Machiventa Melchizedek about thirty-five thousand years later, for the Trinity concept of the Sethites persisted in both Mesopotamia and Egypt but more especially in India, where it was long perpetuated in Agni, the Vedic three-headed fire god.

104:1.3 (1143.6) The third presentation of the Trinity was made by Machiventa Melchizedek, and this doctrine was symbolized by the three concentric circles which the sage of Salem wore on his breast plate. But Machiventa found it very difficult to teach the Palestinian Bedouins about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Most of his disciples thought that the Trinity consisted of the three Most Highs of Norlatiadek; a few conceived of the Trinity as the System Sovereign, the Constellation Father, and the local universe Creator Deity; still fewer even remotely grasped the idea of the Paradise association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104:1.4 (1144.1)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alem missionaries the Melchizedek teachings of the Trinity gradually spread throughout much of Eurasia and northern Africa. It is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riads and the trinities in the later Andite and the post-Melchizedek ages, when both concepts to a certain extent intermingled and coalesced.

104:1.5 (1144.2) Among the Hindus the trinitarian concept took root as Being, Intelligence, and Joy. (A later Indian conception was Brahma, Siva, and Vishnu.) While the earlier Trinity portrayals were brought to India by the Sethite priests, the later ideas of the Trinity were imported by the Salem missionaries and were developed by the native intellects of India through a compounding of these doctrines with the evolutionary triad conceptions.

104:1.6 (1144.3) The Buddhist faith developed two

성을 갖는 두 교리들로 발달하였다: 초기의 것은 스승과 법도와 형제신분이었으며; 그것은 고타마 싯다르타에 의해 제시된 것이었다. 후대의 관념은 부다의 추종자들의 북부 계열에서 발전되었는데, 최극 주님과 성령 그리고 육신화된 구원자를 포용하였다.

그리고 힌두인들과 불교도들의 이 관념들은 실제 삼위일체로서의 가정(假定)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유일신인 하느님에 대한 삼중적 현시활동의 관념이었다. 참된 삼위일체 개념은 독립된 세 하느님들을 함께 묶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은 멜기세덱 시대의 켄-사람-전승들로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지만, 한 하느님, 야훼에 대한 그들의 유일신에서의 열정은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예수가 출현하셨을 무렵에는 엘로힘 교리가 유대 신학으로부터 실천적으로 이미 근절된 상태에 있었다. 히브리 마음은 삼위일체로서의 개념을 유일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유일신에서의 믿음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이슬람 신앙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창발하는 유일신 론이 다신론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삼위일체론을 유지하는 일이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 삼위일체 관념은 교리적인 융통성과 연결된 견고한 유일신 전통을 갖는 그 종교들을 가장 잘 제어한다. 위대한 유일신 논자였던 히브리인들과 모하멧 교도들은 경배하는 세 하느님들, 다신교, 삼위일체론, 신성(神性)과 개인성의 삼원적 현시활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神) 경배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예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개인들에 관한 진리를 자기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가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히브리의 유일신 론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야훼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적 개념과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초기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삼위일체 개념에 반대되는 히브리 선입관을 이어받았다.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삼위일체는 안디옥에서 선포되었으며 하느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지혜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는 일은 드물었고, 새롭게 형성한 교회들에게 보낸 몇 번의 편지들을 통해서만 그것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그의 동료 사도들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역우주의 창조자 아들인 예수를 신(神)의 둘째 개인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과 혼동하였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이해하기 시작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은 우주 아버지와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 그리고 구원자별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지역우주의 어머니 영과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배우자—가 포함되

doctrines of a trinitarian nature: The earlier was Teacher, Law, and Brotherhood; that was the presentation made by Gautama Siddhartha. The later idea, developing among the northern branch of the followers of Buddha, embraced Supreme Lord, Holy Spirit, and Incarnate Savior.

104:1.7 (1144.4) And these ideas of the Hindus and Buddhists were real trinitarian postulates, that is, the idea of a threefold manifestation of a monotheistic God. A true trinity conception is not just a grouping together of three separate gods.

104:1.8 (1144.5) The Hebrews knew about the Trinity from the Kenite traditions of the days of Melchizedek, but their monotheistic zeal for the one God, Yahweh, so eclipsed all such teachings that by the time of Jesus' appearance the Elohim doctrine had been practically eradicated from Jewish theology. The Hebrew mind could not reconcile the trinitarian concept with the monotheistic belief in the One Lord, the God of Israel.

104:1.9 (1144.6) The followers of the Islamic faith likewise failed to grasp the idea of the Trinity. It is always difficult for an emerging monotheism to tolerate trinitarianism when confronted by polytheism. The trinity idea takes best hold of those religions which have a firm monotheistic tradition coupled with doctrinal elasticity. The great monotheists, the Hebrews and Mohammedans, fou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worshipping three gods, polytheism, and trinitarianism, the worship of one Deity existing in a triune manifestation of divinity and personality.

104:1.10 (1144.7) Jesus taught his apostles the truth regarding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but they thought he spoke figuratively and symbolically. Having been nurtured in Hebraic monotheism, they found it difficult to entertain any belief that seemed to conflict with their dominating concept of Yahweh. And the early Christians inherited the Hebraic prejudice against the Trinity concept.

104:1.11 (1144.8) The first Trinity of Christianity was proclaimed at Antioch and consisted of God, his Word, and his Wisdom. Paul knew of the Paradise Trinity of Father, Son, and Spirit, but he seldom preached about it and made mention thereof in only a few of his letters to the newly forming churches. Even then, as did his fellow apostles, Paul confused Jesus, the Creator Son of the local universe, with the Second Person of Deity, the Eternal Son of Paradise.

104:1.12 (1144.9)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Trinity, which began to gain recognition near the close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was comprised of the Universal Father, the Creator Son of Nebadon, and the Divine Minister of Salvington — Mother

어 있었다.

예수의 시대 이후로 이 계시발표들이 제시될 때까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적 정체성이 (특별하게 계시된 소수의 개별존재들은 제외하고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교 개념이 사실에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그것은 실천적으로 진실이다. 오직 그것의 철학적인 함축성과 우주론적 결론만이 이 개념으로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었다: 우주적인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神)의 둘째 개인, 무한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구성원이 한 때 유란시아에 거주하였다고 믿는 것이 어려웠으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반면, 실제성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미가엘 창조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을 충만하게 체현하지만, 절대적 개인성은 아니다.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and creative consort of the Creator Son.

104:1.13 (1145.1) Not since the times of Jesus has the factual identity of the Paradise Trinity been known on Urantia (except by a few individuals to whom it was especially revealed) until its presentation in these revelatory disclosures. But though the Christian concept of the Trinity erred in fact, it was practically true with respect to spiritual relationships. Only in its philosophic implications and cosmological consequences did this concept suffer embarrassment: It has been difficult for many who are cosmic minded to believe that the Second Person of Deity, the second member of an infinite Trinity, once dwelt on Urantia; and while in spirit this is true, in actuality it is not a fact. The Michael Creators fully embody the divinity of the Eternal Son, but they are not the absolute personality.

제 2 장. 삼위일체 합일과 신(神)의 다수성(多數性)

유일신 론은 다신교의 모순에 반대되는 철학적 주장으로서 발생되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초물질적 활동들의 세분화(細分化)와 함께 만신(萬神) 체제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많은 하느님들보다 뛰어난 한 하느님의 단일신적 승격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시킴을 통하여 발달되었다.

삼위일체론은 아무관계도 가지지 않는 우주의의(意義)의 사람모습탈피의-신(神)으로서 독존하는 신(神)의 하나임을 착상하기가 불가능한 데 대한 체험적 항변으로부터 생겨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철학은 순수한 일신론의 신(神) 개념으로부터 개인적 본질특성들을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아무관계도 가지지 않는 하느님의 이 관념을 범신주의적인 절대자의 지위로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조화-협동하는 다른 개인적 존재들과 평등 안에서 그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 하느님의 개인적 자연본성을 납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신(神) 안에 있는 개인성은 그러한 신(神)이 다르고 그리고 동등한 개인적 신(神)과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는 것을 요구한다.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시간-공간 창조계 안에 있는 사랑과 법의 상호관계의 어떤 것을 파악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영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영적 신앙이 물질적 우주의 규정된 법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하느님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의 견고함에 상관없이, 확대하는 조화우주 지평들은, 사람이 또한 파라다이스 신(神)의 실체를 우주적 법칙으로서 인지하기를, 그가 또한 그 법칙을 삼위일체 주권이 파라다이스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하고, 마침내 영원한 세 개인, 그들의 신(神)

2. TRINITY UNITY AND DEITY PLURALITY

104:2.1 (1145.2) Monotheism arose as a philosophic protest against the inconsistency of polytheism. It developed first through pantheon organizations with the departmentalization of supernatural activities, then through the henotheistic exaltation of one god above the many, and finally through the exclusion of all but the One God of final value.

104:2.2 (1145.3) Trinitarianism grows out of the experiential protest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onceiving the oneness of a deanthropomorphized solitary Deity of unrelated universe significance. Given a sufficient time, philosophy tends to abstract the personal qualities from the Deity concept of pure monotheism, thus reducing this idea of an unrelated God to the status of a pantheistic Absolute.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ersonal nature of a God who has no personal relationships in equality with other and co-ordinate personal beings. Personality in Deity demands that such Deity exist in relation to other and equal personal Deity.

104:2.3 (1145.4)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Trinity concept the mind of man can hope to grasp something of the interrelationship of love and law in the time-space creations. Through spiritual faith man gains insight into the love of God but soon discovers that this spiritual faith has no influence on the ordained laws of the material universe. Irrespective of the firmness of man's belief in God as his Paradise Father, expanding cosmic horizons demand that he also give recognition to the reality of Paradise Deity as universal law, that he recognize the Trinity sovereignty extending outward from Paradise and overshadowing even

연합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사실이며 실체이며 영원한 불가분성인, 그 세 개인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자 딸들의 진화하는 지역우주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인지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동일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제 실존개체—개인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절대적인 실체이다; 개인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개인성들—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들—로 비교할 수 있다. 삼위일체는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공동의 생겨나는 초(超)집약적 신(神) 실체이다. 삼위일체의 본질특성과 특징과 기능은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속성들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며; 삼위일체 기능들은 독특하고 기원적인 어떤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속성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주(主)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자기 추종자들에게 공의가 결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며; 그것은 항상 집단적인 기능이라고 훈계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들께서도 개인들로서는 공의를 실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능을 공동적인 전체로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서 수행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에 대한 개념적 파악은 어떤 다른 삼중적 관계들에 대한 그 이상의 제시를 위하여 인간 마음을 준비시킨다. 신학적 판단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으로 충만하게 만족될 수 있겠지만, 철학적 판단력과 우주적 판단력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삼원적 관계적-연합들, 무한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우주적 현시활동—기세, 에너지, 힘, 원인성, 반작용, 잠재성, 실재성, 중력, 긴장, 원형들, 원칙, 그리고 합일의 하느님에 대한 관계들—의 다양한 수용력 안에서 그 속에 기능하는 저들 삼원일체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제 3 장. 삼위일체들과 삼원일체들

인류가 때로는 신(神)의 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에 대해 납득하기는 하였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일곱 절대자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들이 있음을 인간 지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참된 모든 것이 삼원일체에도 반드시 참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삼원일체는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삼원일체는 삼위일체와 유사할 수 있지만, 본성에서는 삼위일체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필사 사람은 유란시아에서 지평이 확장되고 개념들이 확대되는 위대한 시대를 두루 통과하고 있으며, 인간 생각의 지능적 무대의 확대와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의 조화우주 철학은 진화에 가속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사 사람의 조화우주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는 물질적 파

the evolving local universes of the Creator Sons and Creative Daughters of the three eternal persons whose deity union is the fact and reality and eternal indivisibility of the Paradise Trinity.

104:2.4 (1145.5) And this selfsame Paradise Trinity is a real entity — not a personality but nonetheless a true and absolute reality; not a personality but nonetheless compatible with coexistent personalities — the personalitie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Trinity is a supersummative Deity reality eventuating out of the conjoining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The qualities,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Trinity are not the simp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Trinity functions are something unique, original, and not wholly predictable from an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Father, Son, and Spirit.

104:2.5 (1146.1) For example: The Master, when on earth, admonished his followers that justice is never a *personal* act; it is always a *group* function. Neither do the Gods, as persons, administer justice. But they perform this very function as a collective whole, as the Paradise Trinity.

104:2.6 (1146.2) The conceptual grasp of the Trinity association of Father, Son, and Spirit prepares the human mind for the further presentation of certain other threefold relationships. Theological reason may be fully satisfied by the concept of the Paradise Trinity, but philosophical and cosmological reason demand the recognition of the other triune association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ose triunities in which the Infinite functions in various non-Father capacities of universal manifestation — the relationships of the God of force, energy, power, causation, reaction, potentiality, actuality, gravity, tension, pattern, principle, and unity.

3. TRINITIES AND TRIUNITIES

104:3.1 (1146.3) While mankind has sometimes grasped at an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consistency demands that the human intellect perceive that there are certain relationships between all seven Absolutes. But all that which is true of the Paradise Trinity is not necessarily true of a *triunity*, for a triunity is something other than a trinity. In certain functional aspects a triunity may be analogous to a trinity, but it is never homologous in nature with a trinity.

104:3.2 (1146.4) Mortal man is passing through a great age of expanding horizons and enlarging concepts on Urantia, and his cosmic philosophy must accelerate in evolution to keep pace with the expansion of the intellectual arena of human thought. As the cosmic consciousness of mortal

학, 지능적 철학, 그리고 영적 통찰력 속에서 자신이 발견하는, 모든 것의 내적관계속성을 인지한다. 사람은 조화우주의 합일성에 대한 이러한 모든 믿음과 함께, 모든 실존의 다양성을 여전히 인지한다. 신(神)의 불변성에 관한 모든 개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정하게 변화하고 체험적으로 성장하는 우주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인지한다. 영적 가치들의 생존이 실현되는 가에 상관없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수학과 선재(先在)수학으로 기세, 에너지, 그리고 힘에 관하여 끊임없이 추정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성의 영원한 충만됨이, 진화하는 우주의 시간-성장과 그리고 그것의 체험적 거주자들의 미완성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 무한성에 대한 개념은, 필사자 지성과 모론시아 혼이 최종적 가치와 영성화 하는 의의(意義)에 대한 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분할되고 분별화되어야만 한다.

이성은 조화우주 실체의 유일신으로서의 합일을 요구하지만, 유한한 체험은 복수(複數)의 절대자에서 오는 가정과 조화우주 관계에서의 그들의 조화-협동에서 오는 가정을 요구한다. 조화-협동 실존 없이는 절대적 관계들의 다양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으며, 차이, 변수, 변경자, 감쇠자, 분별자, 또는 감쇄자들의 작용에 대한 그 어떤 가망도 없다.

이 글들 속에서 전체 실체(무한성)는 그것이 일곱 절대자들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1. 우주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4. 파라다이스 섬.
5. 신(神) 절대자.
6. 우주 절대자.
7. 분별불가 절대자.

영원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는 첫째 근원이며 중심은, 또한 파라다이스 섬에 대하여 원형틀이다. 그는 아들 안에서 분별불가적인 개인성이지만, 신(神) 절대자 안에서 잠재화된 개인성이다. 아버지는 파라다이스-하보나 안에 계시된 에너지이며, 또한 동시에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 감추어진 에너지이다. 무한자는 공동 행위자의 끊임없는 활동들 안에서 언제까지나 드러나며, 한편으로는 우주 절대자의 보정하는 그러나 가려진 활동들 안에서 영원토록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섯 조화-협동 절대자들에 관계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일곱 모두는 끝없는 영원의 순환주기에 두루 무한의 순환계를 둘러싸고 있다.

man expands, he perceives the interrelatedness of all that he finds in his material science, intellectual philosophy, and spiritual insight. Still, with all this belief in the unity of the cosmos, man perceives the diversity of all existence. In spite of all concepts concerning the immutability of Deity, man perceives that he lives in a universe of constant change and experiential growth. Regardless of the realization of the survival of spiritual values, man has ever to reckon with the mathematics and premathematics of force, energy, and power.

104:3.3 (1146.5) In some manner the eternal repleteness of infinity must be reconciled with the time-growth of the evolving universes and with the incompleteness of the experiential inhabitants thereof. In some way the conception of total infinitude must be so segmented and qualified that the mortal intellect and the morontia soul can grasp this concept of final value and spiritualizing significance.

104:3.4 (1146.6) While reason demands a monotheistic unity of cosmic reality, finite experience requires the postulate of plural Absolutes and of their co-ordinate existences in cosmic relationships. Without co-ordinate existences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appearance of diversity of absolute relationships, no chance for the operation of differentials, variables, modifiers, attenuators, qualifiers, or diminishers.

104:3.5 (1146.7) In these papers total reality (infinity) has been presented as it exists in the seven Absolutes:

104:3.6 (1146.8) 1. The Universal Father.

104:3.7 (1146.9) 2. The Eternal Son.

104:3.8 (1146.10) 3. The Infinite Spirit.

104:3.9 (1147.1) 4. The Isle of Paradise.

104:3.10 (1147.2) 5. The Deity Absolute.

104:3.11 (1147.3) 6. The Universal Absolute.

104:3.12 (1147.4) 7. The Unqualified Absolute.

104:3.13 (1147.5)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o is Father to the Eternal Son, is also Pattern to the Paradise Isle. He is personality unqualified in the Son but personality potentialized in the Deity Absolute. The Father is energy revealed in Paradise-Havona and at the same time energy concealed in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Infinite is ever disclosed in the ceaseless acts of the Conjoint Actor while he is eternally functioning in the compensating but enshrouded activities of the Universal Absolute. Thus is the Father related to the six co-ordinate Absolutes, and thus do all seven encompass the circle of infinity throughout the endless cycles of eternity.

절대적인 관계들의 삼원일체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개인성은 절대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차원들에서도 다른 개인성 관계적-연합을 추구한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세 개인성들의 관계적-연합은 첫 번째 삼원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 연합을 영구화(永久化)시킨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인들이, 개인들로서, 연합된 활동을 위해 공동-결합할 때, 그들은 그것에 의하여 기능적 합일의 삼원일체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삼위일체—유기체적 실존개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일체, 삼중적인 기능적 일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삼원일체가 아니며; 그것은 기능적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뉘어져 있지 않고 또 나눌 수도 없는 신(神)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개인들로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그들의 나뉘지 않은 신(神)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첫 번째 삼원일체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세 개인들로서 그들의 기능적인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삼위일체—나뉘지 않은 신(神)—로서만 그들의 개인적 집합체에서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외면적 관계를 일괄하여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적 관계들 속에서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실존적 삼원일체들이 있지만 실존적 삼위일체는 하나밖에 없다. 삼원일체는 실존개체가 아니다. 그것은 유기체적 이기 보다는 기능적이다. 그 구성원들은 협조자들이라기보다는 동반자들이다. 삼원일체들의 구성 요소들은 실존개체들일 수도 있지만, 삼원일체 그 자체는 하나의 관계적-연합이다.

아무튼, 삼위일체와 삼원일체 사이에는 하나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그 둘 모두는 그 구성원들의 속성들 중에서 인식될 수 있는 전체 이외의 어떤 것들인 기능으로 결국 생겨난다. 그러나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비슷하지만, 그 밖에는 그들이 아무런 범주에 관련된 듯 한 관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능이 구조에 대해 갖는 관계로써만 개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삼원일체 관계적-연합의 기능은 삼위일체 구조 또는 실존개체의 기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일체들은 실체이다; 매우 실체적이다. 그들 안에서는 전체의 실체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우주 아버지는 그것들을 통하여 무한의 지배적 기능들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통제를 행사하신다.

제 4 장. 일곱 삼원일체

일곱 삼원일체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가 각각의 시원적 구성원이시라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첫째 우주 아버지-

104:3.14 (1147.6) It would seem that triunity of absolute relationships is inevitable. Personality seeks other personality association on absolute as well as on all other levels. And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personalities eternalizes the first triunity, the personality union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For when these three persons, as *persons*, conjoin for united function, they thereby constitute a triunity of functional unity, not a trinity — an organic entity — but nonetheless a triunity, a threefold functional aggregate unanimity.

104:3.15 (1147.7) The Paradise Trinity is not a triunity; it is not a functional unanimity; rather it is undivided and indivisible De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as persons) can sustain a relationship to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Trinity is their undivided De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sustain no such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first triunity, for that is their functional union as three persons. Only as the Trinity — as undivided Deity — do they collectively sustain an external relationship to the triunity of their personal aggregation.

104:3.16 (1147.8) Thus does the Paradise Trinity stand unique among absolute relationships; there are several existential triunities but only one existential Trinity. A triunity is *not* an entity. It is functional rather than organic. Its members are partners rather than corporative. The components of the triunities may be entities, but a triunity itself is an association.

104:3.17 (1147.9) There is, however, one point of comparison between trinity and triunity: Both eventuate in functions that are something other than the discernib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component members. But while they are thus comparable from a functional standpoint, they otherwise exhibit no categorical relationship. They are roughly related as the relation of function to structure. But the function of the triunity association is not the function of the trinity structure or entity.

104:3.18 (1147.10) The triunities are nonetheless real; they are very real. In them is total reality functionalized, and through them does the Universal Father exercise immediate and personal control over the master functions of infinity.

4. THE SEVEN TRIUNITIES

104:4.1 (1147.11) In attempting the description of seven triunities, attention is directed to the fact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rimal member of each. He is, was, and ever will be: the First Universal

근원, 절대 중심, 시원적 원인, 우주 통제자, 무제한 활성화, 합일의 근원, 분별불가 유지자, 신(神)의 첫째 개인, 시원적 조화우주 원형틀, 그리고 무한의 본질이 되실 것이다. 우주 아버지는 절대자들의 개인적 원인이시다; 절대들의 절대자이시다.

일곱 삼원일체들의 자연본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삼원일체—개인적이고-목적적인 삼원일체. 이것은 세 신(神) 개인성들의 집합체이다.

1. 우주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이것은 사랑과 자비(慈悲) 그리고 사명활동—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세 개인성들의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적-연합—의 삼중 연합이다. 이것은 신성한 형제우애관계, 창조체-사랑, 아버지다운 행동, 그리고 상승을-추진하는 관계적-연합이다. 이러한 첫째 삼원일체의 신성한 개인성들은 개인성을 증여하고, 영을 수여하며, 마음을 자질로서 부여하는 하느님들이시다.

이것이 무한한 의지의 삼원일체이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에 두루 그리고 시간의 과거-현재-미래 흐름 전체 속에서 활동한다. 이 관계적-연합은 의지적인 무한을 초래하고 기능구조들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신(神)으로 하여금 진화하는 조화우주의 창조체들에게 자아-계시를 이루게 한다.

둘째 삼원일체—힘-원형틀 삼원일체. 미세한 극자, 타오르는 별 또는 소용돌이치는 성운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우주 또는 초우주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물질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간에, 물리적인 원형틀—조화우주 배열—은 이 삼원일체의 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관계적-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아버지-아들
2. 파라다이스 섬.
3. 공동 행위자.

에너지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조화우주 대행자들에 의해 조직된다; 에너지는 파라다이스의 원형틀, 절대적 물질화 이후에 형성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이 과정 전체 뒤에는 무한한 영, 공동 행위자의 탄생에 수반된 하보나의 출현 속에 파라다이스 원형틀을 그 연합이 처음으로 활성화시킨 아버지-아들의 현존이 있다.

종교 체험에 있어서, 창조체들은 사랑이신 하느님과 접촉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은 파라다이스 자체인 원형틀의 우주 사실에 대한 지능적 이해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된다. 파라다이스 개인성들은 신성한 사랑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모든

Father-Source, Absolute Center, Primal Cause, Universal Controller, Limitless Energizer, Original Unity, Unqualified Upholder, First Person of Deity, Primal Cosmic Pattern, and Essence of Infinity. The Universal Father is the personal cause of the Absolutes; he is the absolute of Absolutes.

104:4.2 (1148.1)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even triunities may be suggested as:

104:4.3 (1148.2) *The First Triunity — the personal-purposive triunity.* This is the grouping of the three Deity personalities:

- 104:4.4 (1148.3) 1. The Universal Father.
- 104:4.5 (1148.4) 2. The Eternal Son.
- 104:4.6 (1148.5) 3. The Infinite Spirit.

104:4.7 (1148.6) This is the threefold union of love, mercy, and ministry — the purposive and personal association of the three eternal Paradise personalities. This is the divinely fraternal, creature-loving, fatherly-acting, and ascension-promoting association. The divine personalities of this first triunity are personality-bequeathing, spirit-bestowing, and mind-endowing Gods.

104:4.8 (1148.7) This is the triunity of infinite volition; it acts throughout the eternal present and in all of the past-present-future flow of time. This association yields volitional infinity and provides the mechanisms whereby personal Deity becomes self-revelatory to the creatures of the evolving cosmos.

104:4.9 (1148.8) *The Second Triunity — the power-pattern triunity.* Whether it be a tiny ultimatron, a blazing star, or a whirling nebula, even the central or superuniverses, from the smallest to the largest material organizations, always is the physical pattern — the cosmic configuration — derived from the function of this triunity. This association consists of:

- 104:4.10 (1148.9) 1. The Father-Son.
- 104:4.11 (1148.10) 2. The Paradise Isle.
- 104:4.12 (1148.11) 3. The Conjoint Actor.

104:4.13 (1148.12) Energy is organized by the cosmic agent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energy is fashioned after the pattern of Paradise, the absolute materialization; but behind all of this ceaseless manipulation is the presence of the Father-Son, whose union first activated the Paradise pattern in the appearance of Havona concomitant with the birth of the Infinite Spirit, the Conjoint Actor.

104:4.14 (1148.13) In religious experience, creatures make contact with the God who is love, but such spiritual insight must never eclipse the intelligent recognition of the universe fact of the pattern which is Paradise. The Paradise personalities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숭배를 이끌어 내며 영으로 태어난 그러한 모든 개인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최종자 아들들의 끊임없는 봉사라는 숭고한 환희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 삼원일체는 이들 활동행위가 나타나는 공간 무대의 고안건축가이다; 그것은 우주 배열의 원형틀을 결정한다.

사랑은 첫 번째 삼원일체의 신성(神性)의 특성이 되겠지만, 원형틀은 두 번째 삼원일체의 은하계 현시활동이다. 첫 번째 삼원일체가 진화하는 개인성들이 되듯이, 두 번째 삼원일체는 진화하는 우주들이 된다. 원형틀과 개인성은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활동들에 대한 거대한 현시활동들 중의 두 가지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기세-원형틀과 사랑하는 개인이 하나의 동일한 우주적 실체임이 사실이다; 파라다이스 섬과 영원한 아들은 우주 아버지-기세의 불가해한 자연본성의 조화-협동하는 그러나 대립적인 계시물이다.

셋째 삼원일체—영-진화적 삼원일체. 영적인 현시활동의 전체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관계적-연합 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1. 우주 아버지.
2. 아들-영.
3. 신(神) 절대자.

영 잠재력으로부터 파라다이스 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은 아버지의 순수한 영 본질과 아들-영의 활동적인 영 가치들 그리고 신(神) 절대자의 무제한적인 영 잠재의 삼원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실체 표현을 발견한다. 영의 실존적 가치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기원과 완벽한 현시활동 그리고 이 삼원일체 속에서의 최종적인 운명을 갖는다.

아버지는 영 이전에 존재한다; 아들-영은 활동적인 창조 영으로 작용하고; 신(神) 절대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을 초월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넷째 삼원일체—에너지 무한의 삼원일체. 이 삼원일체 속에서 모든 에너지 실체의 시작과 끝이 공간 잠재력으로부터 단일소(單一素)로 영원히 계속된다. 이 집단은 다음의 존재들을 포용한다:

1. 아버지-영.
2. 파라다이스 섬.
3. 분별불가 절대자.

파라다이스는 조화우주의 기세-에너지 활성화의 중심이다.—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우주적 위치, 분별불가 절대자의 조화우주 초점,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 이러한 삼원일체 안에서 실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속에서 대우주와 주(主)우주가 단지 부분적인 현시활동이 되는, 조화우

enlist the freewill adoration of all creatures by the compelling power of divine love and lead all such spirit-born personalities into the supernal delights of the unending service of the finaliter sons of God. The second triunity is the architect of the space stage whereon these transactions unfold; it determines the patterns of cosmic configuration.

104:4.15 (1149.14) Love may characterize the divinity of the first triunity, but pattern is the galactic manifestation of the second triunity. What the first triunity is to evolving personalities, the second triunity is to the evolving universes. Pattern and personality are two of the great manifestations of the act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o comprehend, it is nonetheless true that the power-pattern and the loving person are one and the same universal reality; the Paradise Isle and the Eternal Son are co-ordinate but antipodal revelations of the unfathomabl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Force.

104:4.16 (1149.1) *The Third Triunity — the spirit-evolutional triunity.* The entirety of spiritual manifestation has its beginning and end in this association, consisting of:

- 104:4.17 (1149.2) 1. The Universal Father.
- 104:4.18 (1149.3) 2. The Son-Spirit.
- 104:4.19 (1149.4) 3. The Deity Absolute.

104:4.20 (1149.5) From spirit potency to Paradise spirit, all spirit finds reality expression in this triune association of the pure spirit essence of the Father, the active spirit values of the Son-Spirit, and the unlimited spirit potentials of the Deity Absolute. The existential values of spirit have their primordial genesis, complete manifestation, and final destiny in this triunity.

104:4.21 (1149.6) The Father exists before spirit; the Son-Spirit functions as active creative spirit; the Deity Absolute exists as all-encompassing spirit, even beyond spirit.

104:4.22 (1149.7) *The Fourth Triunity — the triunity of energy infinity.* Within this triunity there eternalizes the beginnings and the endings of all energy reality, from space potency to monota. This grouping embraces the following:

- 104:4.23 (1149.8) 1. The Father-Spirit.
- 104:4.24 (1149.9) 2. The Paradise Isle.
- 104:4.25 (1149.10) 3.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26 (1149.11) Paradise is the center of the force-energy activation of the cosmos — the universe posi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cosmic focal poin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source of all energy. Existentially present within this triunity is the energy potential of the cosmos-infinite, of which the grand universe and

주-무한의 에너지 잠재이다.

넷째 삼원일체는 우주 에너지의 근본적인 단위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변화하는 조화우주를 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하위-절대적인 수용력의 체험적 신(神) 속에서 출현된 것에 직접 비례로 분별불가 절대자의 장악으로부터 그것들을 풀어준다.

이 삼원일체는 기세와 에너지이다. 분별불가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들은 파라다이스 섬의 절대원 주변에 중심을 두는데, 무제한적 존재의 다른 정적인 침묵의 상상할 수 없는 동요가 그곳으로부터 발산된다. 그리고 무한한 조화우주의 물질적인 파라다이스 가슴의 끝없는 약동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형틀과, 무한한 활성화 제공자,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불가사의한 계획과 조화-협동을 이루며 움직인다.

다섯째 삼원일체-반응적인 무한성의 삼원일체. 이 관계적-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우주 아버지.
2. 우주 절대자.
3. 분별불가 절대자.

이 집단은 신(神)이 아닌 실체의 권역 내에서 실재화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의 기능적 무한성 실현의 영원화를 낳는다. 이 삼원일체는 의지적이고 원인이 되며 긴장되면서 원형틀적인 활동들과 그리고 다른 삼원일체들의 현존들에 대하여 무제한한 반응적 수용능력을 현시한다.

여섯째 삼원일체-조화우주-연관된 신(神)의 삼원일체.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우주 아버지.
2. 신(神) 절대자.
3. 우주 절대자.

이것은 조화우주-안에-있는-신(神) 관계적-연합, 신(神)의 초월성과 관련하는 신(神)의 내재성이다. 이것은 신성시되는 실체의 권역밖에 있는 그 실체들을 향하여 무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神)의 마지막 내어뻘침이다.

일곱째 삼원일체-무한 합일의 삼원일체. 이것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기능적으로 현시하는 무한의 합일, 실재적인 것들과 잠재적인 것들의 조화-협동하는 통일이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우주 아버지.
2. 공동 행위자.
3. 우주 절대자.

the master universe are only partial manifestations.

104:4.27 (1149.12) The fourth triunity absolutely controls the fundamental units of cosmic energy and releases them from th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 direct proportion to the appearance in the experiential Deities of subabsolute capacity to control and stabilize the metamorphosing cosmos.

104:4.28 (1149.13) This triunity is force and energy.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re centered around the absolutum of the Isle of Paradise, whence emanate the unimaginable agitations of the otherwise static quiescence of the Unqualified. And the endless throbbing of the material Paradise heart of the infinite cosmos beats in harmony with the unfathomable pattern and the unsearchable plan of the Infinite Energiz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4:4.29 (1149.14) *The Fifth Triunity — the triunity of reactive infinity.* This association consists of:

104:4.30 (1149.15) 1. The Universal Father.

104:4.31 (1149.16) 2. The Universal Absolute.

104:4.32 (1149.17) 3.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33 (1149.18) This grouping yields the eternalization of the functional infinity realization of all that is actualizable within the domains of nondeity reality. This triunity manifests unlimited reactive capacity to the volitional, causative, tensional, and patternal actions and presences of the other triunities.

104:4.34 (1150.1) *The Sixth Triunity — the triunity of cosmic-associated Deity.* This grouping consists of:

104:4.35 (1150.2) 1. The Universal Father.

104:4.36 (1150.3) 2. The Deity Absolute.

104:4.37 (1150.4) 3. The Universal Absolute.

104:4.38 (1150.5) This is the association of Deity-in-the-cosmos, the immanence of Deity in conjunction with the transcendence of Deity. This is the last outreach of divinity on the levels of infinity toward those realities which lie outside the domain of deified reality.

104:4.39 (1150.6) *The Seventh Triunity — the triunity of infinite unity.* This is the unity of infinity functionally manifest in time and eternity, the co-ordinate unification of actuals and potentials. This group consists of:

104:4.40 (1150.7) 1. The Universal Father.

104:4.41 (1150.8) 2. The Conjoint Actor.

104:4.42 (1150.9) 3. The Universal Absolute.

공동 행위자는 현시활동의 모든 차원들, 유한으로부터 초월을 거쳐 절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재화된 실체의 변화하는 기능적 측면들을 우주적으로 집대성한다. 우주 절대자는 적극적-의지적이고 원인이 되는 신(神) 실체의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분별불가 절대자의 불가해한 권역에 있는 정적이고 반응적이고 신(神)이 아닌 실체의 무한한 가능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완성 실체의 변화하는 측면들 속에 선천적인 차이점들을 완전하게 보정한다.

그들이 이 삼원일체 속에서 기능함에 따라, 조화-협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는 신(神)에게 그리고 비(非)신(神) 현존들에게 똑같이 민감한데, 첫째근원이며 중심도 역시 그러하며, 그는 이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신 이로부터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모든 의미들과 목적들에게 그러하다.

이러한 접근은 삼원일체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삼원일체들의 궁극적 차원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처음의 일곱을 충만하게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시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15개 삼원적 관계적-연합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8가지는 이 글들에 계시되지 않는다. 계시되지 않는 이 관계적-연합들은 최극위에 대한 체험적 차원을 벗어나는 실체들과 실재들 그리고 잠재성들과 관련된다.

삼원일체들은 무한의 기능적 평형장치, 일곱 무한 절대자들의 유일성에 대한 통일이다. 무한이 일곱 절대자들로 변형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로 하여금 기능적 무한 합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삼원일체들의 실존적 현존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삼원일체들을 통합하는 일원이다; 모든 것들은 그의 안에서 그들의 분별불가적인 시작과 영원한 실존 그리고 무한한 운명을 갖는다.—“그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비록 이 관계적-연합들이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을 증강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의 실체에 대한 하위-무한과 하위-절대 현시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나타난다. 일곱 삼원일체들은 융통성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깊이들을 영구화시키며, 새로운 가치들을 신(神)구현화시키고, 새로운 잠재성들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들을 계시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한 조화우주 안에서 변화가 많은 이 모든 현시활동들은 스스로 이신 이의 기원적 무한성의 가상적 정제 상태 안에서 실존적이다.

제 5 장. 삼극일체

조직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떤 삼원적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실제적인 삼원일체들이 아니며, 아버지 삼원일체들로부터 언제

104:4.43 (1150.10) The Conjoint Actor universally integrates the varying functional aspects of all actualized reality on all levels of manifestation, from finites through transcendentals and on to absolutes. The Universal Absolute perfectly compensates the differentials inherent in the varying aspects of all incomplete reality, from the limitless potentialities of active-volitional and causative Deity reality to the boundless possibilities of static, reactive, nondeity reality in the incomprehensible domai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4:4.44 (1150.11) As they function in this triunity, the Conjoint Actor and the Universal Absolute are alike responsive to Deity and to nondeity presences, as also i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o in this relationship is to all intents and purposes concep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the I AM.

104:4.45 (1150.12) These approximations are sufficient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triunities. Not knowing the ultimate level of the triunities, you cannot fully comprehend the first seven. While we do not deem it wise to attempt any further elaboration, we may state that there are fifteen triune association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eight of which are unrevealed in these papers. These unrevealed associations are concerned with realities, actualities, and potentialities which are beyond the experiential level of supremacy.

104:4.46 (1150.13) The triunities are the functional balance wheel of infinity, the unific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Seven Infinity Absolutes. It is the existential presence of the triunities that enables the Father-I AM to experience functional infinity unity despite the diversification of infinity into seven Absolutes.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unifying member of all triunities; in him all things have their unqualified beginnings, eternal existences, and infinite destinies — “in him all things consist.”

104:4.47 (1150.14) Although these associations cannot augment the infinity of the Father-I AM, they do appear to make possible the subinfinite and subabsolute manifestations of his reality. The seven triunities multiply versatility, eternalize new depths, deify new values, disclose new potentialities, reveal new meanings; and all these diversified manifestations in time and space and in the eternal cosmos are existent in the hypothetical stasis of the original infinity of the I AM.

5. TRIODITIES

104:5.1 (1151.1) There are certain other triune relationships which are non-Father in constitution, but they are not real triunities, and they are always distinguished from the Father triunities. They are

나 구분된다. 그것들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준 삼원일체들, 조화-협동 삼원일체들, 그리고 삼극일체(三者一體)들로 불린다. 그것들은 삼원일체들의 실존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 관계적-연합들 중에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실체성의 삼극일체. 이 삼극일체는 다음의 세 가지 절대적 실상들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1. 영원한 아들.
2. 파라다이스 섬.
3. 공동 행위자.

영원한 아들은 영 실체의 절대자, 절대적 개인성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조화우주 실체의 절대자, 절대적 원형틀이다. 조화-협동 행위자는 마음 실체의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영 실체의 협조자이며, 개인성과 힘의 실존적 신(神) 합성이다. 이 삼원적 관계적-연합은 실재화된 실체-영적, 조화우주적, 또는 마음적-의 전체 총합에 대한 조화-협동을 결국 생겨나게 한다. 그것은 실체성에 있어서 분별불가적이다.

잠재성의 삼극일체. 이 삼극일체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관계적-연합 속에 존재한다.

1. 신(神) 절대자.
2. 우주 절대자.
3. 분별불가 절대자.

그래서 모든 숨어있는 에너지 실체-영적, 마음적, 또는 조화우주-의 무한 저장소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 관계적-연합은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 실체의 집대성활동을 가져온다. 그것은 잠재 안에서 무한이다.

삼원일체들이 시원적으로는 무한의 기능적 통일과 관련되듯이, 삼극일체들은 체험적 신(神)들의 조화우주 출현 속에 포함된다. 삼원일체들은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삼극일체들은 체험적 신(神)들-최극, 궁극, 그리고 절대-속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것들은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힘-개인성 합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의 시간적 창조체에게 있어서 최극존재는 스스로 이신 이의 합일체에 대한 계시이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계시되었음]

called variously, associate triunities, co-ordinate triunities, and *triodities*. They are consequential to the existence of the triunities. Two of these associations are constituted as follows:

104:5.2 (1151.2) *The Triodity of Actuality*. This triodity consists i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hree absolute actuals:

- 104:5.3 (1151.3) 1. The Eternal Son.
- 104:5.4 (1151.4) 2. The Paradise Isle.
- 104:5.5 (1151.5) 3. The Conjoint Actor.

104:5.6 (1151.6) The Eternal Son is the absolute of spirit reality, the absolute personality. The Paradise Isle is the absolute of cosmic reality, the absolute pattern. The Conjoint Actor is the absolute of mind reality, the co-ordinate of absolute spirit reality, and the existential Deity synthesis of personality and power. This triune association eventuates the co-ordination of the sum total of actualized reality — spirit, cosmic, or mindal. It is unqualified in actuality.

104:5.7 (1151.7) *The Triodity of Potentiality*. This triodity consists in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 104:5.8 (1151.8) 1. The Deity Absolute.
- 104:5.9 (1151.9) 2. The Universal Absolute.
- 104:5.10 (1151.10) 3. The Unqualified Absolute.

104:5.11 (1151.11) Thus are interassociated the infinity reservoirs of all latent energy reality — spirit, mindal, or cosmic. This association yields the integration of all latent energy reality. It is infinite in potential.

104:5.12 (1151.12) As the triunitie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functional unification of infinity, so are triodities involved in the cosmic appearance of experiential Deities. The triunities are indirectly concerned, but the triodities are directly concerned, in the experiential Deities —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They appear in the emerging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And to the time creatures of space the Supreme Being is a revelation of the unity of the I AM.

104:5.13 (1151.13)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5 편 신(神)과 실체

⇨ 104

유랜시아 책

10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5 편 신(神)과 실체

섹션

소개

제 1 장.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

제 2 장. 삼원적 그리고 칠중(七重)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

제 3 장.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

제 4 장. 합일체, 이원일체 그리고 삼원일체

제 5 장. 유한 실체의 출현

제 6 장. 유한 실체의 반향

제 7 장. 초월적인 것들의 결국 생겨남

PAPER 105

DEITY AND REALITY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2. The I AM as Triune and as Sevenfold

3.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4. Unity, Duality, and Triunity

5.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6. Repercussions of Finite Reality

7.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s

소개

우주 지능존재들 중에서 높은 계층들에게조차도, 무한성이란 것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실체의 최종도 오직 상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마음은, 실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영원성-신비에 침투해보려고 추구할 때, 영원성-무한성을 하나의 절대적인 원인에 의해 산출된 거의 끝없는 타원, 그리고 끝없는 다양화구현의 이 우주 순환회로를 통하여 두루, 운명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어떤 것을 언제까지나 추구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타원으로, 착상하는 것에 의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사자 지성이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할 때, 그러한 유한한 마음은 무한-실체와 대면하게 된다. 실체의 전체성은 무한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수용력에 있어서 하위-무한의 어떤 마음에 의해 충만하게 이해될 수는 결코 없다.

인간 마음은 영원 실존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형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러한 이해 없이는 실체의 전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조차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NTRODUCTION

105:0.1 (1152.1) TO EVEN high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infinity is only partially comprehensible, and the finality of reality is only relatively understandable. The human mind, as it seeks to penetrate the eternity-mystery of the origin and destiny of all that is called *real*, may helpfully approach the problem by conceiving eternity-infinity as an almost limitless ellipse which is produced by one absolute cause, and which functions throughout this universal circle of endless diversification, ever seeking some absolute and infinite potential of destiny.

105:0.2 (1152.2) When the mortal intellect attempts to grasp the concept of reality totality, such a finite mind is face to face with infinity-reality; reality totality is infinity and therefore can never be fully comprehended by any mind that is subinfinite in concept capacity.

105:0.3 (1152.3) The human mind can hardly form an adequate concept of eternity existences, and without such comprehension it is impossible to portray even our concepts of reality totality.

필사자 마음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번역-변경의 과정에서 우리의 개념들이 필히 심각한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음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소개를 시도한다.

제 1 장.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

우주들의 철학자들은 무한의 절대적인 근본 원인성을 무한한,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스스로 이신 이로 기능하는 우주 아버지에게로 돌린다.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관념을 필사 지성에게 소개함에 수반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의미들의 심각한 왜곡과 가치들의 오해가 포함된 인간의 체험적 이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은 절대적인 기원들과 무한한 운명들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도달하려고 시도된 접근을 위한 어떤 기초를 유한한 존재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실체의 기원과 실현을 해명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든 시도에 있어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개념이 모든 개인성 의미들과 가치들에 있어서 신(神)의 1차 개인, 모든 개인성들의 우주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러나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가정(假定)은 우주적 실체의 비(非)신(神)화된 영역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체화될 수가 없다.

스스로 이신 이는 무한자이시다; 스스로 이신 이는 또한 무한성이시다. 순차적인 관점, 시간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실체는 그 기원(起源)을 무한한 스스로 이신 이에 두고 있으며, 과거의 무한한 영원에서 그의 유일한 실존은 유한한 창조체의 최초의 철학적 가정이 되어야만 한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개념은 분별불가한 무한성, 무한한 영원의 모든 것 속에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차별화되지 않은 실체를 암시한다.

실존론적인 개념으로서 스스로 이신 이는 신(神)화 된 것이 아니고 비(非)신(神)화 된 것도 아니며,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것도 미(未)개인적인 것도 아니며, 정적 또는 역동적인 것도 아니다. 스스로 이신 이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분별된-자격도 무한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가정은 분별불가 절대자의 그것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하나의 우주 개념이다.

유한한 마음에는 단순히 시작이 있어야만 하며, 그리고 비록 실체에 실제적인 시작이 결코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실체가 무한을 향하여 현시하는 어떤 근원적 관계들이 있다. 실체-이전(以前), 근본적인, 영원 상태는 다음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어떤 무한한 먼 거리에서, 가정(假定)의, 과거-영원 순간에, 스스로 이신 이는 사물이자 비(非)사물로, 원인이자 결과로, 의지이자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적인

Nevertheless, we may attempt such a presentation, although we are fully aware that our concepts must be subjected to profound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modification to the comprehension level of mortal mind.

1.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105:1.1 (1152:4) Absolute primal causation in infinity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s attribute to the Universal Father functioning as the infinite, the eternal, and the absolute I AM.

105:1.2 (1152:5) There are many elements of danger attendant upon the presentation to the mortal intellect of this idea of an infinite I AM since this concept is so remote from human experiential understanding as to involve serious distortion of meanings and misconception of values. Nevertheless, the philosophic concept of the I AM does afford finite beings some basis for an attempted approach to the partial comprehension of absolute origins and infinite destinies. But in all our attempts to elucidate the genesis and fruition of reality, let it be made clear that this concept of the I AM is, in all personality meanings and values, synonymous with the First Person of Deity, the Universal Father of all personalities. But this postulate of the I AM is not so clearly identifiable in undeified realms of universal reality.

105:1.3 (1152:6) *The I AM is the Infinite; the I AM is also infinity.* From the sequential, time viewpoint, all reality has its origin in the infinite I AM, whose solitary existence in past infinite eternity must be a finite creature's premier philosophic postulate. The concept of the I AM connotes *unqualified infinity*, the undifferentiated reality of all that could ever be in all of an infinite eternity.

105:1.4 (1153:1) As an existential concept the I AM is neither deified nor undeified, neither actual nor potential, neither personal nor impersonal, neither static nor dynamic. No qualification can be applied to the Infinite except to state that the I AM *is*. The philosophic postulate of the I AM is one universe concept which is somewhat more difficult of comprehension than tha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5:1.5 (1153:2) To the finite mind there simply must be a beginning, and though there never was a real beginning to reality, still there are certain source relationships which reality manifests to infinity. The pre-reality, primordial, eternity situation may be thought of something like this: At some infinitely distant, hypothetical, past-eternity moment, the I AM may be conceived as both thing and no thing, as both cause and effect, as both volition and

영원 순간에는 모든 무한 전체에 그 어떤 차별화도 없었다. 무한성은 무한자에 의해 채워지고; 무한자는 무한성을 포함한다. 이것이 영원에 대해 가정한 정적 순간이다; 실체들은 그들의 잠재 속에 아직 억제된 상태였고, 잠재는 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 안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추측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아-의지의 가능성의 실존을 가정해야만 한다.

우주 아버지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 하느님은 너희와 그리고 다른 모든 필사자에게도 이해될 수 있지만, 우주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체험적 경배 개념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스스로 이신 이의 무한성에 대한 너희의 철학적 가설보다 항상 작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의 높고 낮은 창조체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체들이 알 수 없는 신(神)의 더 많은 부분이 있다.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가 실제적 체험의 실체로 우리의 개인성들에게 인지되는 무한성에 대한 단계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신 이는 우리가 첫째근원이며 중심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가설로서 언제까지나 남아있다. 그리고 그 가정조차도 기원적인 실체의 해아릴 수 없는 무한성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주들의 우주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주하는 개인성들의 무리와 함께,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이다. 그러나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우주들과 그의 의도적 지시들에 따라 실체가 된 개인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너희가 주(主)우주의 장관을 보고 놀라며 서 있을 때, 잠시 멈추어서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창조조차도 무한자의 부분적인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바란다.

무한성은 필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차원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지만, 유란시아의 이 시대에도 무한성에 대한 너희 개념들은 점점 자라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미래의 영원을 향하여 앞으로 뻗어 가는 너희의 끝없는 생애들에 두루 계속 자라갈 것이다. 분별불가 무한성은 유한한 창조체에게는 무의미하지만, 무한성은 자아-제한이 가능하고 우주 실존들의 모든 차원들에게 실체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우주 개인성들을 향하여 돌리는 무한자의 얼굴은 아버지, 사랑의 우주 아버지의 얼굴이다.

제 2 장. 삼원적 그리고 칠중(七重)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

실체의 기원을 고려할 때, 모든 절대적 실체가 영원으로부터 나왔고 실존의 시작이 없이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라. 절대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神)의 세 실존론적 개인, 파라다이스 삼 그

response. At this hypothetical eternity moment there is no differentiation throughout all infinity. Infinity is filled by the Infinite; the Infinite encompasses infinity. This is the hypothetical static moment of eternity; actuals are still contained within their potentials, and potentials have not yet appeared within the infinity of the I AM. But even in this conjectured situation we must assume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of self-will.

105:1.6 (1153.3) Ever remember that man's comprehension of the Universal Father is a personal experience. God, as your spiritual Father, is comprehensible to you and to all other mortals; but your experiential worshipful concept of the Universal Father must always be less than your philosophic postulate of the infin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I AM. When we speak of the Father, we mean God as he is understandable by his creatures both high and low, but there is much more of Deity which is not comprehensible to universe creatures. God, your Father and my Father, is that phase of the Infinite which we perceive in our personalities as an actual experiential reality, but the I AM ever remains as our hypothesis of all that we feel is unknowabl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even that hypothesis probably falls far short of the unfathomed infinity of original reality.

105:1.7 (1153.4) The universe of universes, with its innumerable host of inhabiting personalities, is a vast and complex organism, bu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infinitely more complex than the universes and personalities which have become real in response to his willful mandates. When you stand in awe of the magnitude of the master universe, pause to consider that even this inconceivable creation can be no more than a partial revelation of the Infinite.

105:1.8 (1153.5) Infinity is indeed remote from the experience level of mortal comprehension, but even in this age on Urantia your concepts of infinity are growing, and they will continue to grow throughout your endless careers stretching onward into future eternity. Unqualified infinity is meaningless to the finite creature, but infinity is capable of self-limitation and is susceptible of reality expression to all levels of universe existences. And the face which the Infinite turns toward all universe personalities is the face of a Father, the Universal Father of love.

2. THE I AM AS TRIUNE AND AS SEVENFOLD

105:2.1 (1153.6) In considering the genesis of reality, ever bear in mind that all absolute reality is from eternity and is without beginning of existence. By absolute reality we refer to the three existential

리고 세 절대자를 가리킨다. 이 일곱 실체들은, 그들의 순차적인 기원들을 인간 존재들에게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공간 언어에 의존할지라도,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하다.

실체의 기원에 대한 연대순에 의한 묘사를 따름에 있어서,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최초”의 의지적 표현과 “최초”의 반향 반응에 대한 가정된 이론적 순간이 있어야만 한다. 실체의 기원과 발생에 대한 우리의 묘사를 시도함에, 이 단계는 무한한 것으로부터 무한한 하나가 자아-차별화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관계의 가정은 무한성, 스스로 이신 이의 영원한 연속체에 대한 이해로서 삼원적 개념으로 항상 확대되어야만 한다.

스스로 이신 이의 이 자아-변형은 신(神)화된 실체와 비(非)신화된 실체의, 잠재적 그리고 실제적 실체의, 그리고 거의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실체들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화(差別化) 속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일원론(一元論)에서의 이론적인 스스로 이신 이의 이러한 차별화들은, 스스로 이신 이—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존 속에서 절대로서,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개인성으로서 계시되는 전(前)잠재, 전(前)실재, 유일한 전(前)개인적인 자—바로 그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발생하는 동시적 관계로서 영원토록 집대성되는 것이다.

스스로 이신 이는 이러한 내부적 변형에 의해서 칠중의 자아-관계를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 유일한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철학적 (시간) 개념과 스스로 이신 이의 삼원으로서의 과도기 (시간) 개념은 이제 그 스스로 이신 이를 칠중으로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이 칠중—또는 일곱 단계—자연본성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잘 제시될 수 있다:

1.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실체성들의 시원적인 개인성 관계이다. 아들의 절대 개인성은 하느님의 아버지신 분 사실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개인성들의 잠재적인 아들관계를 확립한다. 이 관계는 무한자의 개인성을 확립하고 그것의 영적인 계시를 기원적 아들의 개인성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이룬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는 필사자들까지도 영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2. 우주 통제자. 영원한 파라다이스의 원인인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실체성들, 곧 기원적인 비(非)영적 관계적-연합에서의 미(未)개인적인 시원적 관계신분이다. 우주 아버지는 사랑으로서의-하느님이시고; 우주 통제자는 원형들-로서의-하느님이시다. 이 관계는 형태-모양 구성—의 잠재력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복제가 이루어지는 주(主)원형들—미(未)개인적 그리고 비(非)영적인 관계를 결정한다.

persons of Deity, the Isle of Paradise, and the three Absolutes. These seven realities are co-ordinately eternal, notwithstanding that we resort to time-space language in presenting their sequential origins to human beings.

105:2.2 (1154.1) In following the chronological portrayal of the origins of reality, there must be a postulated theoretical moment of “first” volitional expression and “first” repercussional reaction within the I AM. In our attempts to portray the genesis and generation of reality, this stage may be conceived as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Infinite One* from *The Infinitude*, but the postulation of this dual relationship must always be expanded to a triune conception by the recognition of the eternal continuum of *The Infinity*, the I AM.

105:2.3 (1154.2) This self-metamorphosis of the I AM culminates in the multiple differentiation of deified reality and of undeified reality, of potential and actual reality, and of certain other realities that can hardly be so classified. These differentiations of the theoretical monistic I AM are eternally integrated by simultaneous relationships arising within the same I AM — the prepotential, preactual, prepersonal, monothetic preality which, though infinite, is revealed as absolute in the pre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as personality in the limitless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105:2.4 (1154.3) By these internal metamorphoses the I AM is establishing the basis for a sevenfold self-relationship. The philosophic (time) concept of the solitary I AM and the transitional (time) concept of the I AM as triune can now be enlarged to encompass the I AM as sevenfold. This sevenfold — or seven phase — nature may be best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2.5 (1154.4) 1. *The Universal Father*. I AM father of the Eternal Son. This is the primal personality relationship of actualities.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Son makes absolute the fact of God's fatherhood and establishes the potential sonship of all personalities. This relationship establishes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and consummates its spiritual revelation in the personality of the Original Son. This phase of the I AM is partially experiencible on spiritual levels even by mortals who, while yet in the flesh, may worship our Father.

105:2.6 (1154.5) 2. *The Universal Controller*. I AM cause of eternal Paradise. This is the primal impersonal relationship of actualities, the original nonspiritual association. The Universal Father is God-as-love; the Universal Controller is God-as-pattern. This relationship establishes the potential of form — configuration — and determines the master pattern of impersonal and nonspiritual relationship — the master pattern from which all

3. 우주 창조자. 스스로 이신 이, 영원한 아들과 하나. 아버지와 아들의 (파라다이스 현존에서) 이 연합은 창조적 순환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공동 개인성과 영원한 우주의 출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진다. 유한한 필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는 하보나 창조의 영원 출현과 함께 그것의 참된 시작들을 가진다. 신(神)의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본질에서 아버지-아들의 합일체인 행동의 하느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실재의 모든 차원들 위에 그리고 그 차원들에게 현시된다. 그러므로 신성한 창조성은 틀림없이 합일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합일은 아버지-아들의 이원(二元)성과 아버지-아들-영의 삼위일체의 절대적인 하나 됨의 외부를 향한 반영이다.

4. 무한한 유지자. 스스로 이신 이, 자아-관계적-연합적임. 이것은 실체의 정적인 것들과 잠재적인 것들의 근본적인 관계적-연합이다. 이 관계에서, 분별화되는 것들과 분별불가한 것들 모두가 보정된다. 스스로 이신 이에서의 이 위상은 우주 절대자—신(神) 절대자와 분별불가 절대자의 통합자—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5. 무한한 잠재자. 스스로 이신 이, 자아-분별화됨. 이것은 그것의 덕분으로 삼중적 자아-표현과 자아-게시가 성취되는 스스로 이신 이의 의지적 자아-제한에 대해 영원한 증거를 지니는 무한의 기준점이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대개 신(神) 절대자로 이해된다.

6. 무한한 수용능력자. 스스로 이신 이, 정적-반응, 이것은 끝남이 없는 모체, 미래의 모든 우주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이 위상은 아마 분별불가 절대자의 초(超)중력 현존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

7. 무한성의 우주자인 자. 스스로 이신 이로써의 스스로 이신 이. 이것은 무한성의 균형 상태 또는 자아-관계, 무한성-실체의 영원한 사실 그리고 실체-무한성의 우주적 진리이다. 이 관계가 개인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한, 그것은 모든 개인성의—심지어 절대 개인성도—신성한 아버지로서 우주들에게 계시된다. 이 관계가 미(未)개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현존에서 순수한 영과 순수한 에너지의 절대적 응집으로서 우주에 의해 접촉된다. 이 관계가 하나의 절대로서 이해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시원성 속에 계시된다; 공간의 창조체들로부터 파라다이스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가 있다; 이것은 무한소(無限小)의 극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주(主)우주 에서도 똑같이 진실이다, 현재와 이제까지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것에서도 똑같이 진실이다.

copies are made.

105:2.7 (1154.6) 3. *The Universal Creator.* I AM one with the Eternal Son. This un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presence of Paradise) initiates the creative cycle, which is consummated in the appearance of conjoint personality and the eternal universe. From the finite mortal's viewpoint, reality has its true beginnings with the eternity appearance of the Havona creation. This creative act of Deity is by and through the God of Action, who is in essence the unity of the Father-Son manifested on and to all levels of the actual. Therefore is divine creativity unfailingly characterized by unity, and this unity is the outward reflection of the absolute oneness of the duality of the Father-Son and of the Trinity of the Father-Son-Spirit.

105:2.8 (1155.1) 4. *The Infinite Upholder.* I AM self-associative. This is the primordial association of the statics and potentials of reality. In this relationship, all qualifieds and unqualifieds are compensated. This phase of the I AM is best understood as the Universal Absolute — the unifier of the Deity and the Unqualified Absolutes.

105:2.9 (1155.2) 5. *The Infinite Potential.* I AM self-qualified. This is the infinity bench mark bearing eternal witness to the volitional self-limitation of the I AM by virtue of which there was achieved threefold self-expression and self-revelation. This phase of the I AM is usually understood as the Deity Absolute.

105:2.10 (1155.3) 6. *The Infinite Capacity.* I AM static-reactive. This is the endless matrix, the possibility for all future cosmic expansion. This phase of the I AM is perhaps best conceived as the supergravity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105:2.11 (1155.4) 7. *The Universal One of Infinity.* I AM as I AM. This is the stasis or self-relationship of Infinity, the eternal fact of infinity-reality and the universal truth of reality-infinity.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discernible as personality, it is revealed to the universes in the divine Father of all personality — even of absolute personality.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impersonally expressible, it is contacted by the universe as the absolute coherence of pure energy and of pure spirit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so far as this relationship is conceivable as an absolute, it is revealed in the primac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n him we all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from the creatures of space to the citizens of Paradise; and this is just as true of the master universe as of the infinitesimal ultimatons, just as true of what is to be as of that which is and of what has been.

제 3 장.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

3.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의 주요 일곱 관계들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로 영존(永存)한다. 그러나 우리가 순차적 이야기로 실제 기원과 무한성의 구분을 묘사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일곱 절대자들이 분별불가적으로 그리고 조화-협동적으로 영원하다. 필사자 마음들에게는 그들의 시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개념은 일곱 절대자들에게 시작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실현에 의해 언제나 가리어져야만 했다; 그들은 영원하고 그렇게 항상 존재해 왔다. 일곱 절대자들은 실제의 전제(前提)이다. 그들은 이 글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 첫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첫째 개인이며 최초의 비(非)신(神) 원형틀, 하느님, 우주 아버지, 창조자, 통제자, 유지자, 우주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의 에너지; 모든 잠재들의 잠재며 모든 실재의 근원; 모든 정적인 것의 안정성이며 모든 변화의 역동력; 원형틀의 근원이며 개인들의 아버지. 집합적으로, 모든 일곱 절대자들이 무한성과 동등하지만, 우주 아버지 자신은 실제적으로 무한하시다.

2. 둘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둘째 개인, 영원한 기원적 아들; 스스로 이신 이의 절대 개인성 실체들이며 “스스로 이신 이 개인성”의 실현-계시를 위한 기초. 어떤 개인성도 그의 영원한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아버지에게 도달할 희망이 없다; 또한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이 절대 원형틀의 행동과 도움과 떨어져서는 어떤 개인성도 실존의 영 차원들에 도달할 수가 없다. 둘째근원이며 중심에서 영은 분별불가적인 반면 개인성은 절대적이다.

3.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 둘째 비(非)신화 원형틀,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기세 스스로 이신 이”의 실현-계시를 위한 기초이며 우주 전반에 걸친 중력 통제 수립을 위한 토대. 모든 실재화된, 비(非)영적, 미(未)개인적, 그리고 비(非)의지적 실체에 관해서, 파라다이스는 원형틀들의 절대이다. 영 에너지가 어머니-아들의 절대 개인성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와 관련되는 것과 똑같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중력 통제로 장악된 모든 조화우주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섬의 절대 원형틀을 통하여 관계된다. 파라다이스는 공간에 있지 않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에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운동의 계속성은 파라다이스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 영원한 섬은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조직되고 조직하는 다른 모든 에너지는 영원한 운동 안에 있다; 모든 공간에는, 오직 분별불가 절대자의 현존만이 고요하고, 분별불가자는 파라다이스에 조화-협동하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공간의 중심에 존재하고, 분별불가자는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며, 모든 상대적 실존은 이 권역 안에서 존재한다.

4. 셋째근원이며 중심. 신(神)의 셋째 개인, 공동 행위자; 영원한 아들의 영 에너지들과 파라다

105:3.1 (1155.5) The seven prime relationships within the I AM eternalize as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But though we may portray reality origins and infinity differentiation by a sequential narrative, in fact all seven Absolutes are unqualifiedly and co-ordinately eternal. It may be necessary for mortal minds to conceive of their beginnings, but always should this conception be overshadowed by the realization that the seven Absolutes had no beginning; they are eternal and as such have always been. The seven Absolutes are the premise of reality. They have been described in these papers as follows:

105:3.2 (1155.6) 1.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irst Person of Deity and primal nondeity pattern, God, the Universal Father, creator, controller, and upholder; universal love, eternal spirit, and infinite energy; potential of all potentials and source of all actuals; stability of all statics and dynamism of all change; source of pattern and Father of persons. Collectively, all seven Absolutes equvalate to infinity, but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actually is infinite.

105:3.3 (1155.7) 2.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Second Person of Deity, the Eternal and Original Son; the absolut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I AM and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revelation of “I AM personality.” No personality can hope to attain the Universal Father except through his Eternal Son; neither can personality attain to spirit levels of existence apart from the action and aid of this absolute pattern for all personalities. I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spirit is unqualified while personality is absolute.

105:3.4 (1156.1) 3. *The Paradise Source and Center.* Second nondeity pattern, the eternal Isle of Paradise; the basis for the realization-revelation of “I AM force” an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gravity control throughout the universes. Regarding all actualized, nonspiritual, impersonal, and nonvolitional reality, Paradise is the absolute of patterns. Just as spirit energy is related to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Mother-Son, so is all cosmic energy grasped in the gravity contro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rough the absolute pattern of the Paradise Isle. Paradise is not in space; space exists relative to Paradise, and the chronicity of motion is determined through Paradise relationship. The eternal Isle is absolutely at rest; all other organized and organizing energy is in eternal motion; in all space, only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s quiescent, and the Unqualified is co-ordinate with Paradise. Paradise exists at the focus of space, the Unqualified pervades it, and all relative existence has its being within this domain.

105:3.5 (1156.2) 4.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ird Person of Deity, the Conjoint Actor; infinite

이스의 우주 에너지들을 무한한 집대성 자; 의지의 동기들과 기세의 역학들을 완전하게 조화-협동시키는 존재; 모든 실재적 실체와 실재화 되는 실체를 통합시키는 존재. 그의 다양한 자녀들의 봉사들을 통하여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의 자비를 계시하며 동시에 무한한 조종자로서 기능하고, 공간의 에너지들 속으로 파라다이스의 원형들을 언제까지나 짜 맞춘다. 이 동일한 공동 행위자, 행동의 하느님은 아버지-아들의 무한한 계획들과 목적들의 완전한 표현인 반면 그 자신은 마음의 근원으로 그리고 멀리 퍼지는 조화우주의 창조체들에게 지성을 증여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5. 신(神) 절대자. 원인성인 자(者), 우주 실체의 잠재적으로 개인적인 가능성들, 모든 신(神) 잠재의 총합. 신(神) 절대자는 분별불가적, 절대적, 그리고 비(非)신 실체들의 목적적인 분별화하는 자이다. 신(神) 절대자는 절대에서의 분별화하는 자이며 분별화된 것을 절대화(絶對化)하는 자—운명 개시자—이다.

6. 분별불가 절대자. 정적, 반응적, 미정된 절대; 스스로 이신 이의 계시되지 않은 조화우주 무한성; 비(非)신화된 실체의 총체성 그리고 비(非)개인적 잠재의 최종성. 공간이 분별불가자의 기능을 제한하지만, 분별불가자의 현존은 한계가 없고 무한이다. 주(主)우주 에는 개념적 가장자리가 있지만, 분별불가자의 현존은 무한하다; 영원조차도 이러한 비(非)신(神) 절대자의 한없는 정적을 비우지 못한다.

7. 우주 절대자. 신(神)화된 자와 비(非)신화된 자의 통합자; 절대와 상대를 상호연관하는 자. 우주 절대자는 (정적, 잠재적, 그리고 연관적임) 항상-실존하는 것들과 완성되지 않은 것들 사이의 긴장을 보상한다.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은 실체의 시작들을 구성한다. 필자의 마음들이 그것을 대할 때,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모든 절대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도움이 되더라도, 아들, 영, 세 절대자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의 영원 공존에 의해 무효화된다.

절대자들이 스스로 이신 이-첫째근원이며 중심의 현시활동들인 것은 진리이다; 이들 절대자들에게 시작이 없었지만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조화-협동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영원에서의 절대들의 관계는 시간의 언어로 그리고 공간의 개념 원형들에서 모순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기원에 관한 어떤 혼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체가 그들의 영원성 실존과 무한성 관계들 위에 입각한다는 것은 사실인 동시에 진리이다.

integrator of Paradise cosmic energies with the spirit energies of the Eternal Son; perfect co-ordinator of the motives of will and the mechanics of force; unifier of all actual and actualizing reality. Through the ministrations of his manifold children the Infinite Spirit reveals the mercy of the Eternal Son while at the same time functioning as the infinite manipulator, forever weaving the pattern of Paradise into the energies of space. This selfsame Conjoint Actor, this God of Action, is the perfect expression of the limitless plans and purposes of the Father-Son while functioning himself as the source of mind and the bestower of intellect upon the creatures of a far-flung cosmos.

105:3.6 (1156.3)

5. *The Deity Absolute.* The causational, potentially personal possibilities of universal reality, the totality of all Deity potential. The Deity Absolute is the purposive qualifier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nondeity realities. The Deity Absolute is the qualifier of the absolute and the absolutizer of the qualified — the destiny inceptor.

105:3.7 (1156.4)

6. *The Unqualified Absolute.* Static, reactive, and abeyant; the unrevealed cosmic infinity of the I AM; totality of nondeified reality and finality of all nonpersonal potential. Space limits the function of the Unqualified, but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is without limit, infinite. There is a concept periphery to the master universe, but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is limitless; even eternity cannot exhaust the boundless quiescence of this nondeity Absolute.

105:3.8 (1156.5)

7. *The Universal Absolute.* Unifier of the deified and the undeified; correlator of the absolute and the relative. The Universal Absolute (being static, potential, and associative) compensates the tension between the ever-existent and the uncompleted.

105:3.9 (1156.6)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constitute the beginnings of reality. As mortal minds would regard it,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ould appear to be antecedent to all absolutes. But such a postulate, however helpful, is invalidated by the eternity coexistence of the Son, the Spirit, the three Absolutes, and the Paradise Isle.

105:3.10 (1157.1)

It is a *truth* that the Absolutes are manifestations of the I AM-First Source and Center; it is a *fact* that these Absolutes never had a beginning but are co-ordinate eternals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 relationships of absolutes in eternity cannot always be presented without involving paradoxes in the language of time and in the concept patterns of space. But regardless of any confusion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it is both fact and truth that all reality is predicated upon their eternity existence and infinity relationships.

제 4 장. 합일체, 이원일체 그리고 삼원일체

우주의 철학자들은 스스로 이신 이의 영원성 실존을 모든 실체들에 대한 최초의 근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이신 이가 최초의 자아-관계들—무한성의 일곱 위상들—로 자아-분할하였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정과 동시에 세 번째 가정—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영원성 출현이, 스스로 이신 이의 일곱 위상들과 이 일곱 절대자들의 이원성(二元性) 관계적-연합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이신 이의 자아-계시는 자아-분할을 거친 정적인 자아 그리고 절대 관계들, 자아-유래되는 절대자들과의 관계들로부터 이렇게 발생한다. 이원일체는 그렇게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과 자아-계시의 스스로 이신 이가 자아-분할된 위상의 칠중 무한성과의 영원한 관계적-연합 안에 실존한다. 우주들에게 일곱 절대자들로서 영구화(永久化) 하는 이 이원(二元) 관계들은 모든 우주 실체를 위해 기본적인 기초들을 영원화 한다.

합일체가 이원일체(二元一體)를 낳는다는 것, 이원일체가 삼원일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삼원일체가 모든 것들의 영원한 조상이라고 때로는 이야기되었다. 정말로 근본적 관계들의 위대한 세 등급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합일체 관계들.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 합일체로 그것으로부터 삼중으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칠중의 자아-차별화구현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합일체로 실존하는 관계들.

2. 이원일체(二元一體) 관계들. 칠중으로서의 스스로 이신 이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 사이에 실존하는 관계들.

3. 삼원일체(三元一體) 관계들. 이것들은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이다.

삼원일체 관계들은 이원일체 기초들 위에서 절대자 상호-연관의 불가피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한 삼원일체 관계적-연합들은 모든 실체의 잠재를 영원화 한다; 그들은 신(神)화된 실체와 비(非)신화된 실체 모두를 포함한다.

스스로 이신 이는 합일체로서 분별불가 무한성이다. 이원일체들은 실체 기초들을 영원화 한다. 삼원일체들은 무한성의 실현을 우주 기능으로 결국 생겨나게 한다.

선제적인 것들이 일곱 절대자들로 실존적이 되며, 실존적인 것들은 절대자들의 기본적인 관계적-연합인 삼원일체들 안에서 기능적으로 된다. 그리고 그 삼원일체들의 영원화에 부수적으로, 우주 무대가 정해지고—잠재들이 실존하고 실체들이 현재로 제시되고—그리고 영원의 충만함은 우주 에너지의 변형, 파라다이스 영의 퍼져나감, 그리고 개인성의 증여와 함께 마음의 자질-부여를

4. UNITY, DUALITY, AND TRIUNITY

105:4.1 (1157.2) The universe philosophers postulate the eternity existence of the I AM as the primal source of all reality. And concomitant therewith they postulate the self-segmentation of the I AM into the primary self-relationships — the seven phases of infinity. And simultaneous with this assumption is the third postulate — the eternity appearance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and the eternalization of the duality association of the seven phases of the I AM and these seven Absolutes.

105:4.2 (1157.3) The self-revelation of the I AM thus proceeds from static self through self-segmentation and self-relationship to absolut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with self-derived Absolutes. Duality becomes thus existent in the eternal association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with the sevenfold infinity of the self-segmented phases of the self-revealing I AM. These dual relationships, eternalizing to the universes as the seven Absolutes, eternalize the basic foundations for all universe reality.

105:4.3 (1157.4) It has been sometime stated that unity begets duality, that duality begets triunity, and that triunity is the eternal ancestor of all things. There are, indeed, three great classes of primordial relationships, and they are:

105:4.4 (1157.5) 1. *Unity relationships.* Relations existent within the I AM as the unity thereof is conceived as a threefold and then as a sevenfold self-differentiation.

105:4.5 (1157.6) 2. *Duality relationships.* Relations existent between the I AM as sevenfold and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4.6 (1157.7) 3. *Triunity relationships.* These are the functional associations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105:4.7 (1157.8) Triunity relationships arise upon duality foundations because of the inevitability of Absolute interassociation. Such triunity associations eternalize the potential of all reality; they encompass both deified and undeified reality.

105:4.8 (1157.9) The I AM is unqualified infinity as *unity*. The dualities eternalize reality *foundations*. The triunities eventuate the realization of infinity as *universal function*.

105:4.9 (1157.10) Pre-existentials become existential in the seven Absolutes, and existentials become functional in the triunities, the basic association of Absolutes. And concomitant with the eternalization of the triunities the universe stage is set — the potentials are existent and the actuals are present — and the fullness of eternity witnesses the diversification of cosmic energy, the outspreading

목적하고 증명한다. 이것의 덕분에 모든 신(神)과 파라다이스 파생물들은 창조체 차원의 체험 속에서 통합되며 그리고 초(超)창조체 차원에서는 다른 기법들에 의해서 통합된다.

제 5 장. 유한 실체의 출현

스스로 이신 이의 최초 변형이 고유하고 자아-억제된 의지에 기인해야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 실체의 출현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의지적 행동들 그리고 기능적 삼원일체들의 반향적 조절들의 결과에 기인해야만 한다.

유한자의 신(神)구현화 전에, 모든 실체 차별화가 절대적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유한 실체를 출현시키는 의지적 행동은 절대성의 분별된-자격을 암시하고 상대성들의 출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순차로 제시하고 유한 실체의 역사적인 출현을 절대의 직접적 파생물로 묘사하지만, 초월적인 것들이 유한한 모든 것을 우선하였고 그리고 계승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초월적인 궁극들은 유한 실체에 대하여 원인인 동시에 완성이다.

유한 가능성은 무한자 속에 선천적이지만, 가능성이 개연성으로 그리고 필연성으로의 변화는 모든 삼원일체 관계적-연합들을 활성화시키는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자아-실존적 자유의지에 기인되어야만 한다. 오직 아버지의 뜻의 무한성만이 언제나 실존의 절대차원을 궁극이 결국 생겨나게 하거나 유한을 창조하도록 그렇게 분별화할 수 있다.

상대적이고 분별화된 실체의 출현과 함께, 실체의 새로운 주기(週期)—성장주기—, 즉 파라다이스와 신(神)을 향하여 안쪽으로 언제까지나 휘돌아 회전하면서, 무한성 근원과 어울리는 그 높은 운명들을 항상 추구하면서, 무한성의 고지로부터 유한자의 권역으로 내려가는 장엄함이 존재하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이 활동행위들이 우주역사의 시초들을 구분 짓고, 시간 그 자체의 실존이 시작됨을 구분 짓는다. 창조체에게, 유한의 시작은 실체의 기원이며; 창조체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한보다 먼저 상상할 수 있는 실재성은 없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유한 실체는 두 가지 최초 위상 속에 존재 한다:

1. 제1 최대들, 최극으로 완전한 실체, 우주와 창조체의 하보나 유형.

2. 제2 최대들, 최극으로 완전하게 된 실체, 창조체와 창조의 초우주 유형.

of Paradise spirit, and the endowment of mind together with the bestowal of personality, by virtue of which all of these Deity and Paradise derivatives are unified in experience on the creature level and by other techniques on the supercreature level.

5.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105:5.1 (1158.1) Just as the original diversification of the I AM must be attributed to inherent and self-contained volition, so must the promulgation of finite reality be ascribed to the volitional acts of Paradise Deity and to the repercussional adjustments of the functional triunities.

105:5.2 (1158.2) Prior to the deitization of the finite, it would appear that all reality diversification took place on absolute levels; but the volitional act promulgating finite reality connotes a qualification of absoluteness and implies the appearance of relativities.

105:5.3 (1158.3) While we present this narrative as a sequence and portray the historic appearance of the finite as a direct derivative of the absolut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ranscendentals both preceded and succeeded all that is finite. Transcendental ultimates are, in relation to the finite, both causal and consummational.

105:5.4 (1158.4) Finite possibility is inherent in the Infinite, but the transmutation of possibility to probability and inevitability must be attributed to the self-existent free wil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ctivating all triunity associations. Only the infinity of the Father's will could ever have so qualified the absolute level of existence as to eventuate an ultimate or to create a finite.

105:5.5 (1158.5) With the appearance of relative and qualified reality there comes into being a new cycle of reality — the growth cycle — a majestic downsweep from the heights of infinity to the domain of the finite, forever swinging inward to Paradise and Deity, always seeking those high destinies commensurate with an infinity source.

105:5.6 (1158.6) These inconceivable transactions mark the beginning of universe history, mark the coming into existence of time itself. To a creature, the beginning of the finite *is* the genesis of reality; as viewed by creature mind, there is no actuality conceivable prior to the finite. This newly appearing finite reality exists in two original phases:

105:5.7 (1158.7) 1. *Primary maximums*, the supremely perfect reality, the Havona type of universe and creature.

105:5.8 (1158.8) 2. *Secondary maximums*, the supremely perfected reality, the superuniverse

그리고는, 이것들이 두 가지 최초 현시활동들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한 것과 진화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 그 두 가지는 영원성 관계들 안에서 조화-협동을 이루지만, 시간의 한계들에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시간 요소는 성장하는 것들에게 성장을 의미한다; 제2 유한자들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것들은 시간 속에서 미완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차이점들은, 파라다이스의 이쪽 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영원에서는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것과 완전하게 된 것을 제1 그리고 제2 최대들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제1 그리고 제2 최대들 사이에서 삼위일체화 하는 것과 그 밖의 관계들은 제3의 최대들—완전하지도 않고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두 가지 선조(先祖) 요소들과 조화-협동하는 사물들, 의미들 그리고 가치들—의 출현을 가져온다.

제 6 장. 유한 실체의 반향

전체 유한 실존들의 출현은 기능적 무한성의 절대 관계적-연합들 속에서 잠재들로부터 실제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유한자의 창조적 실재화구현에 대한 많은 반향들 중에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神) 응답, 체험적 최극위의 세 차원의 출현: 하보나의 개인적-영 최극위의 실재성, 대우주에서 이루어질 개인적-힘 최극위를 위한 잠재, 그리고 미래의 주(主)우주 의 어떤 최극위 차원에서 활동할 체험적 마음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능을 위한 역량.

2. 초우주 공간 차원을 위한 고안건축 계획의 활성화가 포함된 우주 응답, 그리고 이 진화는 일곱 초우주들의 물리적 조직에 두루 여전히 진보하고 있다.

3. 유한-실체 출현에 대한 창조체 반향은 하보나의 영원한 거주자들의 계층에서 완전한 존재들의 출현과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완전하게 된 진화적 상승자들의 출현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진화적(시간-창조적)체험으로서 완전성을 달성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서 완전성이-아닌-다른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화적 창조계들에서 불완전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인 악의 기원이다. 부적응, 부조화, 그리고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우주들로부터 개인적 창조체들에 이르기까지 진화적 성장 속에 선천적이다.

4. 진화의 시간지연에 선천적인 불완전성에 대한 신성 응답은, 완전하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

type of creature and creation.

105:5.9 (1158.9) These, then, are the two original manifestations: the constitutively perfect and the evolutionally perfected. The two are co-ordinate in eternity relationships, but within the limits of time they are seemingly different. A time factor means growth to that which grows; secondary finites grow; hence those that are growing must appear as incomplete in time. But these differences, which are so important this side of Paradise, are nonexistent in eternity.

105:5.10 (1158.10) We speak of the perfect and the perfected as primary and secondary maximums, but there is still another type: Trinitizing and other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maries and the secondaries result in the appearance of *tertiary maximums* — things, meanings, and values that are neither perfect nor perfected yet are co-ordinate with both ancestral factors.

6. REPERCUSSIONS OF FINITE REALITY

105:6.1 (1159.1) The entire promulgation of finite existences represents a transference from potentials to actuals within the absolute associations of functional infinity. Of the many repercussions to creative actualization of the finite, there may be cited:

105:6.2 (1159.2) 1. *The deity response*, the appearance of the three levels of experiential supremacy: the actuality of personal-spirit supremacy in Havona, the potential for personal-power supremacy in the grand universe to be, and the capacity for some unknown function of experiential mind acting on some level of supremacy in the future master universe.

105:6.3 (1159.3) 2. *The universe response* involved an activation of the architectural plans for the superuniverse space level, and this evolution is still progressing throughout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5:6.4 (1159.4) 3. *The creature repercussion* to finite-reality promulgation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perfect beings on the order of the eternal inhabitants of Havona and of perfected evolutionary ascender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to attain perfection as an evolutionary (time-creative) experience implies something other-than-perfection as a point of departure. Thus arises imperfection in the evolutionary creations. And this is the origin of potential evil. Misadaptation, disharmony, and conflict, all these things are inherent in evolutionary growth, from physical universes to personal creatures.

105:6.5 (1159.5) 4. *The divinity response* to the imperfection inherent in the time lag of evolution is

과 완전하게 된 것 두 가지 모두를 집대성하는 것인,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칠중 하느님의 보정하는 현존에서 드러난다. 이 시간 지연은 진화에서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시간 창조성이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최극자의 전능한 힘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 결과들에 입각하는 것이다. 이 시간의 지연은 창조체 개인성들이 최대한의 발달을 달성함으로써 신(神)과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성한 창조에 창조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필사 창조체의 물질적인 마음조차도 그렇게 불멸 혼의 이원화(二元化) 구현으로서 신성한 조절자와 협력자가 된다. 또한 칠중 하느님은 불완전성의 상승-이전의 한계들을 보정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완전성의 체험적 한계들을 위한 보정 기법을 제공한다.

제 7 장. 초월적인 것들의 결국 생겨남

초월적인 것들은 하위-무한이고 하위-절대이지만 초(超)유한이고 초(超)창조적이다. 초월적인 것들은 유한들의 최대 가치들과 절대들의 초(超)가치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집대성하는 차원으로 결국 생겨난다. 창조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월적인 것은 유한의 결말로서 결국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영원의 관장에서 본다면, 유한의 예상 안에서 결국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유한의 “선재(先在)적-반향”으로 간주하는 자들도 있다.

초월적인 그것은 반드시 비(非)발견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한한 감각에서 보면 그것은 진화를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비(非)체험적인 것도 아니지만, 창조체들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체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설적인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아마도 완전성의 중앙우주일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거의 아니다—파라다이스 섬만이 “물질화 된” 감각에서 진정으로 절대적이다. 또한 그것은 일곱 초우주들과 같이 유한의 진화하는 창조도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한 것이지만, 비(非)성장의 우주 존재 감각에서 볼 때, 변화 없음은 아니다. 거기에는 실재적으로 창조된 적이 없는 창조체들(하보나 원주민들)이 거주하며, 그들은 영원히 실존한다. 그리하여 하보나는 순전히 유한하지도 않고 아직 절대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예시한다. 더 나아가 하보나는 절대적인 파라다이스와 유한 창조계들 사이에서 하나의 완충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초월적인 것들의 기능을 밝혀준다. 그러나 하보나 자체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그것이 하보나이다.

최극자가 유한 존재들과 연관하듯이, 궁극자는 초월적인 존재들과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가 최극자와 궁극자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그들은 신본 이외의 다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또한 본질특성적인 문제이다. 궁극자는 초월적인 차원에 구체적으로 투사된 초(超)최극자 이상(以上)의 어떤 것이다. 궁극자는 그것의 전체

disclosed in the compensating presence of God the Sevenfold, by whose activities that which is perfecting is integrated with both the perfect and the perfected. This time lag is inseparable from evolution, which is creativity in time. Because of it, as well as for other reasons,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is predicated on the divinity successes of God the Sevenfold. This time lag makes possible creature participation in divine creation by permitting creature personalities to become partners with Deity in the attainment of maximum development. Even the material mind of the mortal creature thus becomes partner with the divine Adjuster in the dualization of the immortal soul. God the Sevenfold also provides techniques of compensation for the experiential limitations of inherent perfection as well as compensating the preascension limitations of imperfection.

7. EVENTUATION OF TRANSCENDENTALS

105:7.1 (1159.6) Transcendentals are subinfinite and subabsolute but superfinite and supercreatural. Transcendentals eventuate as an integrating level correlating the supervalue of absolutes with the maximum values of finites. From the creature standpoint, that which is transcendental would appear to have eventuated as a consequence of the finite; from the eternity viewpoint, in anticipation of the finite; and there are those who have considered it as a “pre-echo” of the finite.

105:7.2 (1159.7) That which is transcendental is not necessarily nondevelopmental, but it is superevolutionary in the finite sense; neither is it nonexperiential, but it is superexperience as such is meaningful to creatures. Perhaps the best illustration of such a paradox is the central universe of perfection: It is hardly absolute — only the Paradise Isle is truly absolute in the “materialized” sense. Neither is it a finite evolutionary creation as are the seven superuniverses. Havona is eternal but not changeless in the sense of being a universe of nongrowth. It is inhabited by creatures (Havona natives) who never were actually created, for they are eternally existent. Havona thus illustrates something which is not exactly finite nor yet absolute. Havona further acts as a buffer between absolute Paradise and finite creations, still further illustrating the function of transcendentals. But Havona itself is not a transcendental — it is Havona.

105:7.3 (1160.1) As the Supreme is associated with finites, so the Ultimate is identified with transcendentals. But though we thus compare Supreme and Ultimate, they differ by something more than degree; the difference is also a matter of quality. The Ultimate is something more than a super-Supreme projected on the transcendental

이지만 그 이상이다: 궁극자는 새로운 신(神) 실체들의 생겨남이며, 그때까지 분별불가적인 것의 새로운 위상에서의 분별된-자격이다.

초월적인 차원과 연관된 그 실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궁극자의 신(神) 현존.
2. 주(主)우주 의 개념.
3. 주(主)우주 고안건축가.
4. 파라다이스 기세 조직자들의 두 계층.
5. 공간 잠재력 속의 특정한 변형들.
6. 영의 특정한 가치들.
7. 마음의 특정한 의미들.
8. 아(亞)절대 본질특성들과 실체들.
9. 전능, 전지, 전재(全在)
- 10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 초월적, 그리고 절대적 차원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성 행위와 에너지 변형의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우주의 무대이다.

그리고 모든 이 다양한 실체들은 여러 삼원일체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통합되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에 의해 기능적으로, 일곱 주(主)영들, 칠중 하느님의 신성의 하위-최극의 조화-협동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통합된다.

칠중 하느님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과 신성의 계시를 최대와 하위-최대상태 모두의 창조체들에게 나타내지만, 영이신 하느님의 신성한 영적 사명활동의 현시활동에 속하지 않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칠중(七重) 관계들이 있다.

과거의 영원에서, 절대자들의 기세들, 신(神)들의 영, 그리고 하느님들의 개인성들은 자아-실존적 자아-의지의 시원적 자아-의지에 응답하여 술렁거렸다. 이 우주 시대에 우리들 모두는 이들 모든 실체의 한계 없는 잠재들의 하위-절대적 현시활동들로 멀리-퍼지는 조화우주 장관의 엄청난 반향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적 실체의 계속적인 다양화가, 시대에서 시대를 두루,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무한성의 멀고도 상상할 수 없는 확장 속으로 앞으로 그리고 밖으로 진행될 것이다.

level. The Ultimate is all of that, but more: The Ultimate is an eventuation of new Deity realities, the qualification of new phases of the theretofore unqualified.

105:7.4 (1160.2) Among those real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transcendental level are the following:

- 105:7.5 (1160.3) 1. The Deity presence of the Ultimate.
- 105:7.6 (1160.4) 2. The concept of the master universe.
- 105:7.7 (1160.5) 3.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 105:7.8 (1160.6) 4. The two orders of Paradise force organizers.
- 105:7.9 (1160.7) 5. Certain modifications in space potency.
- 105:7.10 (1160.8) 6. Certain values of spirit.
- 105:7.11 (1160.9) 7. Certain meanings of mind.
- 105:7.12 (1160.10) 8. Absonite qualities and realities.
- 105:7.13 (1160.11) 9. Omnipotence,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 105:7.14 (1160.12) 10. Space.

105:7.15 (1160.13) The universe in which we now live may be thought of as existing on finite, transcendental, and absolute levels. This is the cosmic stage on which is enacted the endless drama of personality performance and energy metamorphosis.

105:7.16 (1160.14) And all of these manifold realities are unified *absolutely* by the several triunities, *functionally* by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relatively* by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subsupreme co-ordinators of the divinity of God the Sevenfold.

105:7.17 (1160.15) God the Sevenfold represents the personality and divinity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creatures of both maximum and submaximum status, but there are other sevenfold relationship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hich do not pertain to the manifestation of the divine spiritual ministry of the God who is spirit.

105:7.18 (1160.16) In the eternity of the past the forces of the Absolutes, the spirits of the Deities,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Gods stirred in response to the primordial self-will of self-existent self-will. In this universe age we are all witnessing the stupendous repercussions of the far-flung cosmic panorama of the subabsolute manifestations of the limitless potentials of all these realities. And it is altogether possible that the continued diversification of the original re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may proceed onward and outward throughout age upon age, on and on, into the faraway and inconceivable

stretches of absolute infinity.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105:7.19 (1161.1)}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6 편 실체의 우주 차원

⇨ 105

유랜시아 책

10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6 편 실체의 우주 차원

섹션

소개

- 제 1 장. 유한 기능들의 1차 관계적-연합
 제 2 장. 2차 최극 유한 집대성활동
 제 3 장. 초월적 3차 실체 관계적-연합
 제 4 장. 궁극의 4차 집대성활동
 제 5 장. 공동절대 또는 5번째-위상 관계적-연합
 제 6 장. 절대 또는 제6-위상 집대성활동
 제 7 장. 운명의 최종
 제 8 장.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제 9 장. 실존적 무한 통일

PAPER 106

UNIVERSE LEVELS OF REALITY

SECTIONS

Introduction

1. Primary Association of Finite Functionals
2. Secondary Supreme Finite Integration
3. Transcendental Tertiary Reality Association
4. Ultimate Quartan Integration
5. Coabsolute or Fifth-Phase Association
6. Absolute or Sixth-Phase Integration
7. Finality of Destiny
8. The Trinity of Trinities
9. Existential Infinite Unification

소개

상승하는 필사자는 우주 실체의 창생과 현시 활동들에 대한 신(神)의 관계들 중의 어떤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그는 실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실체들, 잠재적인 실체들과 실제적인 실체들에 대한 수많은 차원들과 자기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적응, 그의 조화우주 통찰력, 그리고 그의 영적 방향성구현은 모두 우주 실체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 그리고 상호-연관과 집대성활동과 통일에 대한 그들의 기법들에 의해 증진된다.

현재의 대우주와 창발하는 주(主)우주는, 기능적 활동의 여러 차원들에서 차례로 실존하는 실체의 여러 형태들과 위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실존들과 잠복들은 이 글들에서 이미 제시되었으며, 이제는 개념적인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들로 구분된다:

1. 미완성 유한들. 이것은 대우주의 상승하는

INTRODUCTION

106:0.1 (1162.1) IT IS not enough that the ascending mortal should know something of the relations of Deity to the genesis and manifestations of cosmic reality; he should also comprehend something of the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himself and the numerous levels of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realities, of potential and actual realities. Man's terrestrial orientation, his cosmic insight, and his spiritual directionization are all enhanced by a better comprehension of universe realities and their techniques of interassociatio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106:0.2 (1162.2) The present grand universe and the emerging master universe are made up of many forms and phases of reality which, in turn, are existent on several levels of functional activity. These manifold existents and latents have been previously suggested in these papers, and they are now grouped for conceptual convenienc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106:0.3 (1162.3)* 1. *Incomplete finites.* This is the

창조체들의 현재 지위,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현재 지위이다. 이 차원은 행성의 인간으로부터 운명 달성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체 실존을 포용하지만 운명 달성자들은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초기의 물리적 출발점들로부터 빛과 생명 안에 정착하기까지 우주에 부속되지만, 빛과 생명 안에 정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차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창조적인 활동의 현재 가장자리를 구성한다. 그것은 파라다이스로부터 현재 우주 시대의 마감을 향하여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대우주가 빛과 생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또한 분명히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에서 발전적 성장의 어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 최대 유한들. 이것은 운명—현 우주 시대의 범위 내에서 계시된 대로의 운명—을 달성한 모든 체험적 창조체들의 현재 지위이다. 우주들도 영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 모두 최고 지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말은 그 자체가 계시적인 단어—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최고인가?—이다. 그리고 최대점에 달한 그것은 현재 우주 시대에서는 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올 시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실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보나의 어떤 위상들은 최대 계층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초월들. 유한 진보 다음에 이 초(超)유한 차원이 (먼저) 따라온다. 그것은 유한 시초들의 유한-이전 기원과, 명백하게 유한한 모든 종말들 또는 운명들의 유한-이후 의의(意義)를 포함한다. 파라다이스-하보나의 대부분은 초월적 계층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궁극들. 이 차원은 완성된 주(主)우주 의 운명 차원에 영향을 미치며 주(主)우주 에 의의(意義)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파라다이스-하보나는 (특별히 아버지의 세계들의 순환회로) 여러 면에서 궁극적 의의(意義)를 지닌다.

5. 공동절대들. 이 차원은 창조적 표현의 초(超)주(主)우주 장(場)에서의 체험자들의 구체적 인 투사 활동을 의미한다.

6. 절대들. 이 차원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들의 영원 현존을 암시한다. 또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연관된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을 남득하지 못하며, 어쩌면 개인성의 잠재와 접촉을 통해서일 것이다.

7. 무한. 이 차원은 실존-이전이며 체험-이후이다. 무한의 분별불가한 합일은 모든 시초들 이전과 모든 운명들 이후의 가정적 실체이다.

실체에 대한 이 차원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그리고 필사자적 전망을 위한 편리한 타협의 상징화이다. 필사자 이외의 다른 전망에서 그리고 다른 우주적 시대들의 입장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하여 계시된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이라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제한되고 조건이 설정되

present status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the present status of Urantia mortals. This level embraces creature existence from the planetary human up to, but not including, destiny attainers. It pertains to universes from early physical beginnings up to, but not including,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This level constitutes the present periphery of creative activity in time and space. It appears to be moving outward from Paradise, for the closing of the present universe age, which will witness the grand universe attainment of light and life, will also and surely witness the appearance of some new order of developmental growth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06:0.4 (1162.4)

2. *Maximum finites*. This is the present status of all experiential creatures who have attained destiny — destiny as revealed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universe age. Even universes can attain to the maximum of status,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But the term “maximum” is itself a relative term — maximum in relation to what? And that which is maximum, seemingly final, in the present universe age may be no more than a real beginning in terms of the ages to come. Some phases of Havona appear to be on the maximum order.

106:0.5 (1162.5)

3. *Transcendentals*. This superfinite level (antecedently) follows finite progression. It implies the prefinite genesis of finite beginnings and the postfinite significance of all apparent finite endings or destinies. Much of Paradise-Havona appears to be on the transcendental order.

106:0.6 (1162.6)

4. *Ultimates*. This level encompasses that which is of master universe significance and impinges on the destiny level of the completed master universe. Paradise-Havona (especially the circuit of the Father's worlds) is in many respects of ultimate significance.

106:0.7 (1163.1)

5. *Coabsolutes*. This level implies the projection of experientials upon a supermaster universe field of creative expression.

106:0.8 (1163.2)

6. *Absolutes*. This level connotes the eternity presence of the seven existential Absolutes. It may also involve some degree of associative experiential attainment, but if so, we do not understand how, perhaps through the contact potential of personality.

106:0.9 (1163.3)

7. *Infinity*. This level is pre-existential and postexperiential. Unqualified unity of infinity is a hypothetical reality before all beginnings and after all destinies.

106:0.10 (1163.4)

These levels of reality are convenient compromise symbolization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and for the mortal perspective. There are a number of other ways of looking at reality from other-than-mortal perspective and from the standpoint of other universe ages. Thu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concepts herewith

는 감각 속에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1. 필사자 언어의 제한성들.

2. 필사자 마음의 제한성들.

3. 일곱 초우주들의 제한적인 발달.

4. 파라다이스를 향한 필사자의 상승에 관계되지 않는 초우주의 여섯 가지 주요 목적들에 대한 너희의 무지함.

5. 부분적인 영원 관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의 무력함.

6. 일곱 초우주들이 진화적으로 나타나는 현 시대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시대들과 관련된 조화우주 진화와 운명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함.

7.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실존-이전(以前)의 것들 또는 체험-이후의 것들에 의해 파악하는 능력이 어떤 창조체에게도 없음.

실체 성장은 계속적인 우주 시대들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우주는 하보나 시대에는 진화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지만, 현재의 초우주의 신(新)시대 기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화하는 초우주들과 조화-협동함으로써 야기되는 특정한 진보적 변화들을 겪고 있다. 현재 진화하고 있는 일곱 초우주들은 언젠가는 빛과 생명의 안정된 지위를 달성하게 될 것인데, 현재 우주 시대에 해당하는 성장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다음 시대,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의 시대는 현 시대의 운명 한계들로부터 초우주들을 풀어줄 것이다. 충만함은 완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첨가(添加)되고 있다.

이것들은 사물들과 의미들 그리고 가치들의 조화우주 성장에 대한 통합된 개념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실체의 차원에서의 그들에 대한 합성된 개념을 제시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제한점들 중의 일부이다.

제 1 장. 유한 기능들의 1차 관계적-연합

유한 실체의 1차 또는 영-출처 위상들은 창조체 차원들에서는 완전한 개인성들로 그리고 우주 차원들에서는 완전한 하보나 창조로 직접 표현됨을 발견한다. 심지어는 체험적 신(神)도 하보나에 있는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나 유한 존재의 2차적, 진화적, 시간-물질-제한된 위상들은 오직 성장과 달성의 결과로서만 조화우주로 집대성되게 된다. 2차 또는 완성되어 가는 모든 유한체들이 결국에는 1차 완성의 그것과 동일한 차원을 달성하게 되지만, 그러한

presented are entirely relative, relative in the sense of being conditioned and limited by:

106:0.11 (1163.5) 1. The limitations of mortal language.

106:0.12 (1163.6) 2. The limitations of the mortal mind.

106:0.13 (1163.7) 3. The limited develop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6:0.14 (1163.8) 4. Your ignorance of the six prime purposes of superuniverse development which do not pertain to the mortal ascent to Paradise.

106:0.15 (1163.9) 5. Your inability to grasp even a partial eternity viewpoint.

106:0.16 (1163.10) 6. The impossibility of depicting cosmic evolution and destiny in relation to all universe ages, not just in regard to the present age of the evolutionary unfolding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06:0.17 (1163.11) 7. The inability of any creature to grasp what is really meant by pre-existentials or by postexperientials — that which lies before beginnings and after destinies.

106:0.18 (1163.12) Reality growth is condition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successive universe ages. The central universe underwent no evolutionary change in the Havona age, but in the present epochs of the superuniverse age it is undergoing certain progressive changes induced by co-ordination with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The seven superuniverses, now evolving, will sometime attain the settled status of light and life, will attain the growth limit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beyond doubt, the next age, the age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ill release the superuniverses from the destiny limitations of the present age. Repletion is continually being superimposed upon completion.

106:0.19 (1163.13) These are some of the limitations which we encounter in attempting to present a unified concept of the cosmic growth of things, meanings, and values and of their synthesis on ever-ascending levels of reality.

1. PRIMARY ASSOCIATION OF FINITE FUNCTIONALS

106:1.1 (1163.14) The primary or spirit-origin phases of finite reality find immediate expression on creature levels as perfect personalities and on universe levels as the perfect Havona creation. Even experiential Deity is thus expressed in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in Havona. But the secondary, evolutionary, time-and-matter-conditioned phases of the finite become cosmically integrated only as a result of growth and attainment. Eventually all secondary or

운명은 시간 지연, 중앙 창조계에서는 유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초우주를 구성하는 분별된-자격에 종속된다. (우리는 제3의 유한체들이 실존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집대성활동의 기법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우주 시간 지연, 완전성 달성을 막는 이 방해물은 창조체가 진화적 성장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체로 하여금 동일한 그 창조체의 진화 속에서 창조자와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확대하는 성장을 이룩하는 이 시기들 동안 미완성인 것은 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완전한 것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칠중 하느님은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 속에서 시간이라는 방해물들에 대한 이해를 파라다이스 신(神)에 의해 나타낸다. 파라다이스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공간적으로 아무리 깊더라도, 물질적으로 생존된 개인성이 생겨날 수 있는데, 칠중 하느님이 거기에 존재하시고 그러한 미완성이고 고심하며 진화적인 창조체에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으로 이루어진 사랑 넘치고 그리고 자비 넘치는 사명활동에 종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칠중 하느님의 신성 사명활동은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뻗어나가며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통하여 우주의 아버지들—창조자 아들들—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간다.

사람은, 개인적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영적 진보에 의해서, 칠중 신(神)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신성을 발견한다, 그러나 개인성의 진보와 관여되지 않는 칠중 하느님의 다른 위상들이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신(神) 집단화에서의 신성 양상들은 일곱 주(主) 영들과 공동 행위자 사이의 연락 속에서 집대성되고 있지만, 그들은 최극존재의 창발하는 개인성 속에서 영원히 통합되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현재의 우주 시대 속에서 칠중 신(神)의 다른 위상들이 다양하게 집대성되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최극자 안에서 통합되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칠중자는, 모든 위상에서, 현재 대우주의 기능적 실체의 상대적 합일의 근거이다.

제 2 장. 2차 최극 유한 집대성활동

칠중 하느님이 유한 진화를 기능적으로 조화-협동하듯이, 최극존재는 결국에는 운명 달성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최극존재는—영 핵심들 주변의 물리적 진화와, 물리적 진화의 돌아가며 소용돌이치는 권역들에 대한 영 핵심들의 생겨나는 통치—대우주 진화의 신(神) 정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개인성 즉: 가장 높은 의미에서는 파라다이스 개인성, 우주 감각에서는 창조자 개인성, 인

perfecting finites are to attain a level equal to that of primary perfection, but such destiny is subject to a time delay, a constitutive superuniverse qualification which is not genetically found in the central creation. (We know of the existence of tertiary finites, but the technique of their integration is as yet unrevealed.)

106:1.2 (1164.1) This superuniverse time lag, this obstacle to perfection attainment, provides for creature participation in evolutionary growth. It thus makes it possible for the creature to enter into partnership with the Creator in the evolution of that selfsame creature. And during these times of expanding growth the incomplete is correlated with the perfect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106:1.3 (1164.2) God the Sevenfold signifies the recognition by Paradise Deity of the barriers of time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space. No matter how remote from Paradise, how deep in space, a material survival personality may take origin, God the Sevenfold will be found there present and engaged in the loving and merciful ministr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o such an incomplete, struggling, and evolutionary creature. The divinity ministry of the Sevenfold reaches inward through the Eternal Son to the Paradise Father and outward through the Ancients of Days to the universe Fathers — the Creator Sons.

106:1.4 (1164.3) Man, being personal and ascending by spiritual progression, finds the personal and spiritual divinity of the Sevenfold Deity; but there are other phases of the Sevenfold which are not concerned with the progression of personality. The divinity aspects of this Deity grouping are at present integrated in the liaison between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 Conjoint Actor, but they are destined to be eternally unified in the emerging personality of the Supreme Being. The other phases of the Sevenfold Deity are variously integrated in the present universe age, but all are likewise destined to be unified in the Supreme. The Sevenfold, in all phases, is the source of the relative unity of the functional reality of the present grand universe.

2. SECONDARY SUPREME FINITE INTEGRATION

106:2.1 (1164.4) As God the Sevenfold functionally coordinates finite evolution, so does the Supreme Being eventually synthesize destiny attainment. The Supreme Being is the deity culmination of grand universe evolution — physical evolution around a spirit nucleus and eventual dominance of the spirit nucleus over the encircling and whirling domains of physical evolution. And all of this takes

간적 의미에서는 필사자의 개인성, 정점에 달한 또는 체험적으로 합쳐지는 의미에서는 최극자 개인성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한다.

최극자에 대한 개념은 영 개인과 진화 힘 그리고 힘-개인성 합성—진화하는 힘과 그리고 그에 의한 통치를 동반하는 영 개인성의 통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영은 하보나를 통해 파라다이스로부터 온다. 에너지-물질은 공간 한가운데에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자손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체험적이다; 창조자 신성들과 진화적 창조체들도 포함하여 폭넓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감싸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활동행위이다. 대우주에서의 창조자 신성들의 힘 통제력은 시간-공간 창조계들에 대한 진화적 안착과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서서히 팽창하며, 이것은 칠중 하느님의 체험적 힘이 꽃 피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증여로부터 파라다이스 아들의 생명 증여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신성 달성 전체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획득된 힘, 명시된 힘, 체험적 힘이다; 그것은 영원 힘, 헤아릴 수 없는 힘,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실존적 힘과 대조를 이룬다.

칠중 하느님 자신의 신성 성취로부터 발생되는 이 체험적 힘은, 진화하는 창조계들의 성취된 체험적 지배에 대한 전능(全能)한 힘으로서, 합성화—전체화—에 의하여 신성의 응집된 본질특성들을 현시한다. 그리고 이 전능 힘은 이번에는, 최극자 하느님의 하보나 현존의 영 개인성과의 연합으로 하보나 세계의 외부 환형 지대에 있는 선도 구체에서 영-개인성 응집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체험적 신(神)은 시간과 공간의 힘 산물에, 중앙 창조계에 거주하는 영 현존과 신성한 개인성을 뒤덮어 지니게 함으로써 긴 진화적 투쟁을 완결시킨다.

그래서 최극존재는 결국에는 이들 본질특성들에게 영 개인성을 부여하는 한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모든 것 전체를 포용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창조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필사자들조차도 이 장엄한 사건 속에 참여하는 개인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극자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최극자를 그러한 진화적 신(神)의 참된 자녀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달성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파라다이스 완전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적 필사자들이 언젠가는 체험적 최극자와 친족관계를 달성하게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personality: Paradise personality in the highest sense, Creator personality in the universe sense, mortal personality in the human sense, Supreme personality in the culminating or experiential totaling sense.

106:2.2 (1164.5) The concept of the Supreme must provide for the differential recognition of spirit person, evolutionary power, and power-personality synthesis — the unification of evolutionary power with, and its dominance by, spirit personality.

106:2.3 (1164.6) Spirit, in the last analysis, comes from Paradise through Havona. Energy-matter seemingly evolves in the depths of space and is organized as power by the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in conjunction with the Creator Sons of God. And all of this is experiential; it is a transaction in time and space involving a wide range of living beings including even Creator divinities and evolutionary creatures. The power mastery of the Creator divinities in the grand universe slowly expands to encompass the evolutionary settling and stabilizing of the time-space creations, and this is the flowering of the experiential power of God the Sevenfold. It encompasses the whole gamut of divinity attainment in time and space from the Adjuster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life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is is earned power, demonstrated power, experiential power; it stands in contrast to the eternity power, the unfathomable power, the existential power of the Paradise Deities.

106:2.4 (1165.1) This experiential power arising out of the divinity achievements of God the Sevenfold itself manifests the cohesive qualities of divinity by synthesizing — totalizing — as the almighty power of the attained experiential mastery of the evolving creations. And this almighty power in turn finds spirit-personality cohesion on the pilot sphere of the outer belt of Havona worlds in union with the spirit personality of the Havona presence of God the Supreme. Thus does experiential Deity culminate the long evolutionary struggle by investing the power product of time and space with the spirit presence and divine personality resident in the central creation.

106:2.5 (1165.2) Thus does the Supreme Being eventually attain to the embrace of all of everything evolving in time and space while investing these qualities with spirit personality. Since creatures, even mortals, are personality participants in this majestic transaction, so do they certainly attain the capacity to know the Supreme and to perceive the Supreme as true children of such an evolutionary Deity.

106:2.6 (1165.3) Michael of Nebadon is like the Paradise Father because he shares his Paradise perfection; so will evolutionary mortals sometime attain to kinship with the experiential Supreme, for

되는데, 그들이 그의 진화적 완전성을 진정으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극자 하느님은 체험적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체험될 수 있다. 일곱 절대자들의 실존적 실체들은 체험이라는 기법에 의해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성 실체들만이 기도-경배 태도 속에서 유한한 창조체의 개인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최극존재의 완성된 힘-개인성 합성 속에는, 그렇게 연관될 수 있는 여러 삼극일체들의 절대성으로 연관된 모든 것들이 존재할 것이며, 장엄한 이 진화의 개인성은 체험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모든 유한 개인성들에 의해 납득될 수 있다. 상승하는 존재들이 영 실존의 선결 조건인 일곱 번째 단계를 달성하였을 때,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인 최극존재 안에서 그러한 것이 하위-절대적인 차원에서 계시되듯이, 그 삼극일체들의 절대성과 무한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치 실현을 거기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대 발전의 이들 단계의 달성은 아마도 대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 안에 조화-협동하여 안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 3 장. 초월적 3차 실체 관계적-연합

아(亞)절대 고안건축자들이 계획을 결국 생겨나게 한다; 최극 창조자들이 그것을 실존 안으로 가져와 내어놓는다; 최극존재가 그것이 최극 창조자들에 의해 창조된 시간이었든 것으로 그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주(主) 고안건축가들에 의한 공간 예측이었던 것처럼 그에 따라, 그것의 충만함을 더할 나위 없이 완성할 것이다.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에 주(主)우주 의 행정-관리적 조화-협동 체제는 주(主)우주 고안자들의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가 종료될 때의 전능 최극자의 출현은 진화적인 유한(有限)이 체험적 운명의 첫 단계를 달성하였음을 암시한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최극 창조자들과 최극존재 그리고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연합—이 완성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히 인도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주(主) 창조의 더 앞서는 진화적 집대성활동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정말로 무한 중의 하나이며, 어떤 삼위일체도 이 기원적 삼위일체를 포함하지 않는 무한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기원적인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신(神)들의 배타적 관계적-연합에서의 생겨남이다; 하위-절대적 존재들은 이러한 1차 관계적-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출현하는 그리고 체험적인 삼위일체들은 창조체 개인성들의 공헌까지도 포용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궁극자에게 확실히 참말이

they will truly share his evolutionary perfection.

106:2.7 (1165.4) God the Supreme is experiential; therefore is he completely experientible. The existential realities of the seven Absolutes are not perceivable by the technique of experience; only the *personality realities*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can be grasped by the personality of the finite creature in the prayer-worship attitude.

106:2.8 (1165.5) Within the completed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Supreme Being there will be associated all of the absoluteness of the several triodities which could be so associated, and this majestic personality of evolution will be experientially attainable and understandable by all finite personalities. When ascenders attain the postulated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they will therein experience the realization of a new meaning-value of the absoluteness and infinity of the triodities as such is revealed on subabsolute levels in the Supreme Being, who is experientible. But the attainment of these stages of maximum development will probably await the co-ordinate settling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in light and life.

3. TRANSCENDENTAL TERTIARY REALITY ASSOCIATION

106:3.1 (1165.6) The absonite architects eventuate the plan; the Supreme Creators bring it into existence; the Supreme Being will consummate its fullness as it was time created by the Supreme Creators, and as it was space forecast by the Master Architects.

106:3.2 (1165.7)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administrative co-ordina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e func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But the appearance of the Almighty Supreme at the termin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will signify that the evolutionary finite has attained the first stage of experiential destiny. This happening will certainly lead to the completed function of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 the union of the Supreme Creators, the Supreme Being,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is Trinity is destined to effect the further evolutionary integration of the master creation.

106:3.3 (1166.1) The Paradise Trinity is truly one of infinity, and no Trinity can possibly be infinite that does not include this original Trinity. But the original Trinity is an eventuality of the exclusive association of absolute Deities; subabsolute beings had nothing to do with this primal association. The subsequently appearing and experiential Trinities embrace the contributions of even creature personalities. Certainly this is true of

며, 거기에 주(主) 창조자 아들들이 최극 창조자 구성원들 사이에서 곧 바로 그렇게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관계적-연합 내에서 실재에서의 현존과 진정한 창조체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다.

최초의 체험적 삼위일체는 궁극적 생겨나는 것들의 집단적 달성을 제공한다. 집단적 관계적-연합들은 개별적 수용력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유한 차원을 넘어설 때에도 그러하다. 앞으로 도래할 시대들에서는, 일곱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을 이룩한 후에, 최종의 무리단들이 삼위일체 궁극자들에 의해 명령을 받으면서 그리고 최극존재 안에서 힘-개인성 통합을 이룩하면서 반드시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목적들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과거 영원과 미래 영원의 거대한 우주 발달들 전체에 두루, 우리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의 확대를 간파하였다. 스스로 이 신 이로서, 우리는 전체 무한성에 대한 그의 충만함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가정하지만, 어떤 창조체도 그러한 가정을 체험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우주들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중력과 사랑이 시간-조직화 공간 속으로 뻗어 나가면서, 우리는 첫째 근원이며 중심을 점점 더 납득할 수 있다. 우리는 분별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뚫고 들어가는 중력 활동을 목격하며, 신(神) 절대자의 신성 현존 속에서 진화하고 확대하는 영 창조체들을 발견하는 반면에 조화우주 진화와 영 진화 두 가지는 마음과 체험에 의해 유한 신(神) 차원들에서 최극존재로 통합되고 있으며 초월적 차원에서는 삼위일체 궁극자로서 조화-협동하고 있다.

제 4 장. 궁극의 4차 집대성활동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궁극적 의미에서 확실하게 조화-협동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자아-분별화된 절대로서 기능한다; 체험적인 삼위일체 궁극자는 초월적 존재를 초월적인 것으로 조화-협동시킨다. 영원한 미래에 있어서 이 체험적 삼위일체는 합일을 증강시킴으로써 궁극적 신(神)의 생겨나는 현존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삼위일체 궁극자가 주요 창조를 조화-협동시키도록 되어 있는 반면, 궁극자 하느님은 주(主)우주 전체의 방향성구현에 대한 초월적 힘-개인성구현이다. 궁극자의 완성된 생겨남은 주(主) 창조의 완성을 내포하며 이 초월적 신(神)의 충만한 창발을 암시한다.

궁극자의 충만한 창발에 의해 어떤 변화들이 시작되는 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극자가 현재 하보나에서 영적(靈的)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궁극자는 또한 아(亞)절대 그리고 초(超)개인적 의미에서 거기에 제시

the Trinity Ultimate, wherein the very presence of the Master Creator Sons among the Supreme Creator members thereof betokens the concomitant presence of actual and bona fide creature experience *within* this Trinity association.

106:3.4 (1166.2)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provides for group attainment of ultimate eventualities. Group associations are enabled to anticipate, even to transcend, individual capacities; and this is true even beyond the finite level. In the ages to come, after the seven superuniverses have been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Corps of the Finality will doubtless be promulgating the purposes of the Paradise Deities as they are dictated by the Trinity Ultimate, and as they are power-personality unified in the Supreme Being.

106:3.5 (1166.3) Throughout all the gigantic universe developments of past and future eternity, we detect the expansion of the comprehensible elements of the Universal Father. As the I AM, we philosophically postulate his permeation of total infinity, but no creature is able experientially to encompass such a postulate. As the universes expand, and as gravity and love reach out into time-organizing space, we are able to understand more and mo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observe gravity action penetrating the spac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we detect spirit creatures evolving and expanding within the divinity presence of the Deity Absolute while both cosmic and spirit evolution are by mind and experience unifying on finite deity levels as the Supreme Being and are co-ordinating on transcendental levels as the Trinity Ultimate.

4. ULTIMATE QUARTAN INTEGRATION

106:4.1 (1166.4) The Paradise Trinity certainly co-ordinates in the ultimate sense but functions in this respect as a self-qualified absolute; the experiential Trinity Ultimate co-ordinates the transcendental as a transcendental. In the eternal future this experiential Trinity will, through augmenting unity, further activate the eventuating presence of Ultimate Deity.

106:4.2 (1166.5) While the Trinity Ultimate is destined to co-ordinate the master creation, God the Ultimate is the transcendental power-personalization of the directioniza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The completed eventuation of the Ultimate implies the completion of the master creation and connotes the full emergence of this transcendental Deity.

106:4.3 (1166.6) What changes will be inaugurated by the full emergence of the Ultimate we do not know. But as the Supreme is now spiritually and personally present in Havona, so also is the Ultimate there present but in the absonite and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분별된 궁극자 대관들의 현재 행방이나 혹은 기능에 대해 소식들 듣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실존(實在)에 대한 소식은 들어 왔다.

그러나 궁극적 신(神)의 창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관리적 반향들에 상관없이, 그의 초월적 신성에 대한 개인적 가치들은 이 신(神) 차원의 실재화구현 속에 참여해 온 모든 개인성들에 의해 체험될 것이다. 유한 존재의 초월은 궁극적 달성 쪽으로만 인도될 수 있다. 궁극자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 속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존재들과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을 위한 선천적인 수용능력에도 불구하고 하위-절대적이다.

제 5 장. 공동절대 또는 5번째-위상 관계적-연합

궁극자는 최극자가 진화적-체험적 실체의 정점인 듯이 초월적 실체의 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체험적 신(神)들의 실재적 창발은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이것이 최극자 하느님,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료자의 연합인, 삼위일체 절대자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잠재성의 절대자—신(神), 우주, 분별불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정적(假定的)인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절대자의 완성된 형태화는 하보나로부터 제4의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공간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主)우주 의 완성된 진화 이후에만 발생될 수 있다.

이 체험적 삼위일체들이 체험적 신성의 개인성 본질특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神) 합일 달성에 특성을 부여하는 다른-개인성-외적 본질특성 모두에 대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러한 설명이 먼저 조화우주의 통일에 대한 개인적 현상을 취급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들의 우주의 미(未)개인적 양상들이, 최극존재의 진화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힘-개인성 합성에 의해서 묘사되듯이 마찬가지로 통일의 과정을 겪도록 운명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극자의 영-개인적 본질특성들은 전능자의 힘 진보성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 두 가지는 최극마음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에 의해 보완된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최극자 하느님은 궁극적 신(神)의 개인-이외의 양상들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 차원에서 신(神)과 분별불가 절대자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우주 절대자의 현존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들은, 기원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개

superpersonal sense. And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though you have not been informed of their present whereabouts or function.

106:4.4 (1167.1) But irre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repercussions attendant upon the emergence of Ultimate Deity, the personal values of his transcendental divinity will be experiential by all personalities who have been participants in the actualization of this Deity level. Transcendence of the finite can lead only to ultimate attainment. God the Ultimate exists in transcendence of time and space but is nonetheless subabsolute notwithstanding inherent capacity for functional association with absolutes.

5. COABSOLUTE OR FIFTH-PHASE ASSOCIATION

106:5.1 (1167.2) The Ultimate is the apex of transcendental reality even as the Supreme is the capstone of evolutionary-experiential reality. And the actual emergence of these two experiential Deitie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This is the Trinity Absolute, the un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unrevealed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And this Trinity has theoretical capacity to activate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But the completed formation of this Trinity Absolute could take place only after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from Havona to the fourth and outermost space level.

106:5.2 (1167.3)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se experiential Trinities are correlative, not only of the personality qualities of experiential Divinity, but also of all the other-than-personal qualities which characterize their attained Deity unity. While this presentation deals primarily with the personal phases of the unification of the cosmos, it is nonetheless true that the impersonal aspec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re likewise destined to undergo unification as is illustrated by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now going on in connection with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spirit-personal qualities of the Supreme are inseparable from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and both are complemented by the unknown potential of Supreme mind. Neither can God the Ultimate as a person be considered apart from the other-than-personal aspects of Ultimate Deity. And on the absolute level the Deity and the Unqualified Absolutes are inseparable and indistinguishable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106:5.3 (1167.4) Trinities are, in and of themselves, not

인적이지 않지만, 개인성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집단적 의미에서 미(未)개인적 기능들과 서로 관련시킨다. 그래서 삼위일체들은 항상 신(神) 실체인 반면 개인성 실체는 결코 아니다. 삼위일체의 개인성 양상들은 그것의 개별적 구성원들 속에 고유하게 존재하며, 개별적 개인들로서는 그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집단적 형태로서만 삼위일체이다; 그것이 삼위일체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포함된 모든 신(神)을 항상 내포한다; 삼위일체는 신(神) 합일이다.

세 절대자들—신(神), 우주, 그리고 분별불가—은 삼위일체가 아닌데, 셋 모두가 신(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신(神)화된 존재만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관계적-연합들은 삼위일체 또는 삼극일체들이다.

제 6 장. 절대 또는 제 6-위상 집대성 활동

주(主)우주 의 현재 잠재가 궁극에 가까운 것은 틀림없겠지만 절대적인 상태는 거의 아니며, 우리는 하위-절대적 조화우주의 범위 안에서 절대적 의미-가치들의 충만한 계시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절대자들의 무한한 가능성들에 대한 전체 표현을 이해하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또는 신(神) 절대자의 미(未)개인적인 현재 차원에서의 절대자 하느님의 체험적 개인성구현을 시각화(視覺化) 시키려고 시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주(主)우주 의 공간-무대는, 최극존재의 실재화구현을 위하여, 삼위일체 궁극자의 형태화와 충만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궁극자 하느님의 생겨남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삼위일체 절대자의 시초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두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의 전체 기능에 관한 우리의 개념들은 널리 퍼져가는 주(主)우주 조차도 초월하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우리가—주(主)우주 밖에 있는 광대한 어떤 우주—조화우주-무한성을 가정한다면 그리고 절대적 삼위일체의 최종적인 발전들이 그러한 초(超)궁극 활동 무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삼위일체 절대자의 완성된 기능이 무한의 창조계들 속에서 최종적인 표현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잠재들의 절대적인 실재화구현을 더할 나위 없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나-확대하는 실체의 단편들의 집대성활동과 관계적-연합은, 그렇게 관계적-연합된 단편들 내에서 모든 실체의 포함에 비례하는 지위의 절대성에 접근할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 삼위일체 절대자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전체 기능에 있어서 실제로 절대적이다. 하나의 절대적인 기능이 조건적이거나 분별화되거나 또는 한정된 다른 기초 위에서

personal, but neither do they contravene personality. Rather do they encompass it and correlate it, in a collective sense, with impersonal functions. Trinities are, then, always *deity* reality but never *personality* reality. The personality aspects of a trinity are inherent in its individual members, and as individual persons they are *not* that trinity. Only as a collective are they trinity; that *is* trinity. But always is trinity inclusive of all encompassed deity; trinity is deity unity.

106:5.4 (1167.5) The three Absolutes —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 are not trinity, for all are not deity. Only the deified can become trinity; all other associations are triunities or triidities.

6. ABSOLUTE OR SIXTH-PHASE INTEGRATION

106:6.1 (1167.6) The present potential of the master universe is hardly absolute, though it may well be near-ultimate, and we deem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full revelation of absolute meaning-values within the scope of a subabsolute cosmos. We therefore encounter considerable difficulty in attempting to conceive of a total expression of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the three Absolutes or even in attempting to visualize the experiential personalization of God the Absolute on the now impersonal level of the Deity Absolute.

106:6.2 (1168.1) The space-stage of the master universe seems to be adequate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for the formation and full function of the Trinity Ultimate, for the eventuation of God the Ultimate, and even for the inception of the Trinity Absolute. But our concepts regarding the full function of this second experiential Trinity seem to imply something beyond even the wide-spreading master universe.

106:6.3 (1168.2) If we assume a cosmos-infinite — some illimitable cosmos on beyond the master universe — and if we conceive that the final developments of the Absolute Trinity will take place out on such a superultimate stage of action, then it becomes possible to conjecture that the completed fun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will achieve final expression in the creations of infinity and will consummate the absolute actualization of *all* potentials. The integration and association of ever-enlarging segments of reality will approach absoluteness of status proportional to the inclusion of all reality within the segments thus associated.

106:6.4 (1168.3) Stated otherwise: The Trinity Absolute, as its name implies, is really absolute in total function. We do not know how an absolute function can achieve total expression on a

어떻게 전체 표현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전체성 기능이라도 (잠재적 상태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매우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것이 또한 무제한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무한한 반면, 그리고 체험적 삼위일체 궁극자가 하위-무한인 반면, 삼위일체 절대자는 분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발단과 구성에 있어서 체험적이더라도, 그것은 잠재성을 갖는 체험적 절대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아득하고도 초인간 개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 마음에게 거의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절대자의 영원 행위, 잠재성을 소유하는 절대자들이 갖는 어떤 종류의 체험화 속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분별불가 절대자가 아니라면 우주 절대자에 관하여 이치에 맞는 결론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그 우주 절대자가 정적이고 잠재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에 대한 전체 신(神) 의미에서 볼 때 연관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신성과 개인성의 상상할 수 있는 가치들에 관하여는, 예측되는 이 사건들이 신(神) 절대자의 개인성구현을 내포하며, 초개인적인 그 가치들의 출현과 절대자 하느님—체험적 신(神)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존재—의 개인성 완성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그 초개인적 의미들의 출현을 내포한다.

제 7 장. 운명의 최종

무한 실제 집대성활동에 관한 개념들을 조합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중 일부는 그러한 모든 관념들이 우주적 발달의 최종의 어떤 것, 그 전에 항상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체험적 실현을 포함한다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그리고 양적인 무한이 최종 속에서 항상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험적 발전의 어떤 부분도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세 잠재적 절대자들 속에는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항상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원 자체는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절대 이상(以上)은 아니다.

최종적 집대성활동이라는 모호한 개념조차도 분별불가한 영원의 결실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착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시간에도 실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운명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神)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 확립된다; 운명은 그의 절대성이 미래의 모든 발전 가능성들을 포함하는 위대한 세 잠재적 존재들의 광대함 속에 확립된다; 운명은 아마 우주 운명 완료자의 행동에 의해

qualified, limited, or otherwise restricted basis. Hence we must assume that any such totality function will be unconditioned (in potential). And it would also appear that the unconditioned would also be unlimited, at least from a qualitative standpoint, though we are not so sure regarding quantitative relationships.

106:6.5 (1168.4) Of this, however, we are certain: While the existential Paradise Trinity is infinite, and while the experiential Trinity Ultimate is subinfinite, the Trinity Absolute is not so easy to classify. Though experiential in genesis and constitution, it definitely impinges upon the existential Absolutes of potentiality.

106:6.6 (1168.5) While it is hardly profitable for the human mind to seek to grasp such faraway and superhuman concepts, we would suggest that the eternity a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may be thought of as culminating in some kind of experientialization of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is would appear to b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Universal Absolute, if not the Unqualified Absolute; at least we know that the Universal Absolute is not only static and potential but also associative in the total Deity sense of those words. But in regard to the conceivable values of divinity and personality, these conjectured happenings imply the person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and the appearance of those superpersonal values and those ultrapersonal meanings inherent in the personality completion of God the Absolute — the third and last of the experiential Deities.

7. FINALITY OF DESTINY

106:7.1 (1168.6) Some of the difficulties in forming concepts of infinite reality integration are inherent in the fact that all such ideas embrace something of the finality of universal development, some kind of an experiential realization of all that could ever be. And it is inconceivable that quantitative infinity could ever be completely realized in finality. Always there must remain unexplored possibilities in the three potential Absolutes which no quantity of experiential development could ever exhaust. Eternity itself, though absolute, is not more than absolute.

106:7.2 (1169.1) Even a tentative concept of final integration is inseparable from the fruitions of unqualified eternity and is, therefore, practically nonrealizable at any conceivable future time.

106:7.3 (1169.2) Destiny is established by the volitional act of the Deities who constitute the Paradise Trinity; destiny is established in the vastness of the three great potentials whose absoluteness encompasses the possibilities of all future

성취 완료되고, 이 행동은 아마 삼위일체 절대자 안에 있는 최극자와 궁극자와 관련될 것이다. 어떤 체험적 운명도 체험하는 창조체들에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무한한 실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명은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최종자 운명은 신(神) 절대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존적-체험적 달성이다. 그러나 신(神)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의 덕분으로 분별불가 절대자와 영원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가능성에 있어서 체험적인 이 세 절대자들은 실재적으로 실존하며, 더욱이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이며, 무공간적이고, 끝이 없으며, 측량할 수 없다—진정한 무한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의 불가능성은 그러한 가정적 운명들에 관한 철학적 이론화를 방해하지 않는다. 신(神) 절대자의 실재화 할 수 있는 절대적 하느님으로서의 현실화는 실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최종 결실은 이론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조화우주-무한 속에서의 분별불가 절대자의 간섭은 끝없는 영원의 미래 속에서 가능할 수없이 멀리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가설은 정당하다. 필사자들, 모론시아 존재들, 영들, 최종자, 초월자,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우주 자체들 그리고 실체의 모든 다른 위상들과 함께,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최종적인 운명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존재 또는 우주가 그러한 운명의 모든 양상들을 언제나 완벽하게 달성하게 되리라는 점에 우리는 의혹을 품고 있다.

너희들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장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 영원의 모든 순환들에 두루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항상 남아있게 될 탐구되지 않은 광대함에 의해서 항상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께로 아무리 많이 다가가더라도, 거기에는 그에 관한 훨씬 더 많은 것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실체가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것이 초월적 차원들에서 참된 것과 똑같이 유한 실존의 권역에서도 그러하다. 하느님을 향한 탐구는 끝이 없다!

최종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은 어떤 면에서도 우주 창조체들을 낙담시키지 않는다; 정말로 너희는 칠중자와 최극자 그리고 궁극자의 신(神) 차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무한한 실현이 영원한 아들에게 그리고 영원 실존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 상태에 있는 공동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의미한다. 창조체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무한성은 끝없는 미래에 두루 상승하는 개인성이 그의 앞에서 영원조차도 고갈시키거나 종결시키지 않을 개인성 발달과 신(神) 관계적-연합에 대한 가능성들을 소유할 것에 대한 최극의 보증이다.

development; destiny is probably consummated by the act of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and this act is probably involved with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in the Trinity Absolute. Any experiential destiny can be at least partially comprehended by experiencing creatures; but a destiny which impinges on infinite existentials is hardly comprehensible. Finality destiny is an existential-experiential attainment which appears to involve the Deity Absolute. But the Deity Absolute stands in eternity relationship with the Unqualified Absolute by virtue of the Universal Absolute. And these three Absolutes, experiential in possibility, are actually existential and more, being limitless, timeless, spaceless, boundless, and measureless — truly infinite.

106:7.4 (1169.3) The improbability of goal attainment does not, however, prevent philosophical theorizing about such hypothetical destinies. The actualization of the Deity Absolute as an attainable absolute God may be practically impossible of realization; nevertheless, such a finality fruition remains a theoretical possibility. The involvement of the Unqualified Absolute in some inconceivable cosmos-infinite may be measurelessly remote in the futurity of endless eternity, but such a hypothesis is nonetheless valid. Mortals, morontians, spirits, finaliters, Transcendentalers, and others, together with the universes themselves and all other phases of reality, certainly do have a *potentially final destiny that is absolute in value*; but we doubt that any being or universe will ever completely attain all of the aspects of such a destiny.

106:7.5 (1169.4) No matter how much you may grow in Father comprehension, your mind will always be staggered by the unrevealed infinity of the Father-I AM, the unexplored vastness of which will always remain unfathomable and incomprehensible throughout all the cycles of eternity. No matter how much of God you may attain, there will always remain much more of him, the existence of which you will not even suspect. And we believe that this is just as true on transcendental levels as it is in the domains of finite existence. The quest for God is endless!

106:7.6 (1169.5) Such inability to attain God in a final sense should in no manner discourage universe creatures; indeed, you can and do attain Deity levels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which mean to you what the infinite realization of God the Father means to the Eternal Son and to the Conjoint Actor in their absolute status of eternity existence. Far from harassing the creature, the infinity of God should be the supreme assurance that throughout all endless futurity an ascending personality will have before him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Deity association which even eternity will neither exhaust nor terminate.

대우주의 유한한 창조체들에게는 주(主)우주의 개념들이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亞)절대 고안건축가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곳에서의 미래에 대한 그 관계성과 끝남이 없는 스스로 이신 이 안에서의 상상되지 않는 발달들을 인지하고 있다. 공간 그 자체까지도 궁극적인 상황, 중간-공간에 있는 고요한 지역들의 상대적 절대성 안에서의 분별된-자격의 조건에 불과하다.

전체 주(主)우주 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상황 수도 없는 먼 미래적 영원 시점에, 우리는 그것의 전체 역사를 단지 그 시초로서, 미지의 무한성 속에서 더욱 크게 그리고 더욱 마음을 사로잡는 변형들을 위한 확실하게 유한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기초들의 창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되돌아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미래적 영원의 순간에 주(主)우주는 여전히 나이가 어린것으로 보일 것이다; 정말로 그것은 결코 끝이 없는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들 앞에서 항상 젊은 상태가 될 것이다.

무한한 운명 달성의 불가능성은 그러한 운명에 관한 관념들의 적용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으며, 우리가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세 절대 잠재들이 언제든지 완벽하게 실재화될 수가 있다면, 실제 전체의 최종적 집대성활동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실현은 그들의 연합이 스스로 이신 이의 잠복성, 영원의 정지된 실체들, 모든 미래성에서의 미정인 가능성들, 그리고 그 보다 더한 것을 이루고 있는 세 잠재성인, 분별불가 절대자, 우주 절대자, 그리고 신(神) 절대자들의 완성된 실재화구현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한 생겨남은 최소한을 말하더라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삼위일체들의 기능구조들, 개인성들 그리고 관계적-연합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의 일곱 절대 현상들의 재결합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존적 지위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뒤이어 나타나는 체험적 본성과 기원의 두 삼위일체들을 에워싸는, 삼중 삼위일체의 개념과 얼굴을 맞대도록 만든다.

제 8 장.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자연본성은 인간 마음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영원성 실현의 이론적 무한성 안에서 현시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무한성의 전체성에 대한 실제적 요약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한 것들은 실존적으로 무한한 것들과 정체성을 달성하며, 그 두 가지는 체험-이전, 실존-이전의 스스로 이신 이 안에 하나로 존재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열 다섯의 삼위일체들 그리고 연관된 삼극일체들 안에 내포된 전체에 대한 최종적 표현이다. 최종성은 상대적인 존재들에게는 그들이 실존적 또는 체험적이다 라는 것이 이

106:7.7 (1169.6) To finite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the concept of the master universe seems to be well-nigh infinite, but doubtless the absonite architects thereof perceive its relatedness to future and unimagined developments within the unending I AM. Even space itself is but an ultimate condition, a condition of qualification *within* the relative absoluteness of the quiet zones of midspace.

106:7.8 (1170.1) At the inconceivably distant future eternity moment of the final completion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no doubt we will all look back upon its entire history as only the beginning, simply the creation of certain finite and transcendental foundations for even greater and more enthralling metamorphoses in uncharted infinity. At such a future eternity moment the master universe will still seem youthful; indeed, it will be always young in the face of the limitless possibilities of never-ending eternity.

106:7.9 (1170.2) The improbability of infinite destiny attainment does not in the least prevent the entertainment of ideas about such destiny, and we do not hesitate to say that, if the three absolute potentials could ever become completely actualized, it would be possible to conceive of the final integration of total reality. This developmental realization is predicated on the completed actualization of the Unqualified, Universal, and Deity Absolutes, the three potentialities whose union constitutes the latency of the I AM, the suspended realities of eternity, the abeyant possibilities of all futurity, and more.

106:7.10 (1170.3) Such eventualities are rather remote to say the least; nevertheless, in the mechanisms, personalities, and associations of the three Trinities we believe we detect the theoretical possibility of the reuniting of the seven absolute phases of the Father-I AM. And this brings us face to face with the concept of the threefold Trinity encompassing the Paradise Trinity of existential status and the two subsequently appearing Trinities of experiential nature and origin.

8. THE TRINITY OF TRINITIES

106:8.1 (1170.4) The nature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difficult to portray to the human mind; it is the actual summation of the entirety of experiential infinity as such is manifested in a theoretical infinity of eternity realiz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the experiential infinite attains to identity with the existential infinite, and both are as one in the pre-experiential, pre-existential I AM. The Trinity of Trinities is the final expression of all that is implied in the fifteen triunities and associated triadities. Finalities are difficult for relative beings to comprehend, be they existential or experiential;

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상대적 존재들로 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여러 위상들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동요시키는 가능성과 확률 그리고 필연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천상(天上)의 현자들도 예견하지 못할 암시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암시하는 것들이 삼위일체들이며, 그 삼위일체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묘사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 세-차원 개념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세 삼위일체들의 차원.
2. 체험적 신(神)의 차원.
3. 스스로 이신 이의 차원.

이것들은 증가하는 통일의 차원들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차원인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들은 첫 번째 차원의 통일-파생물이다.

첫 번째 차원: 최초의 이 관계적-연합 차원에서는 독특성, 신(神) 개인성들의 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세 삼위일체들의 기능이 완전하게 동조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1.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세 파라다이스 신(神)들—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관계적-연합.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삼중적 기능—절대 기능, 초월적 기능(궁극위 삼위일체), 유한 기능(최극위 삼위일체)—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그 어느 때든지 그리고 그 모든 때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다.

2. 궁극 삼위일체. 이것은 최극 창조자들, 최극자 하느님과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의 신(神) 관계적-연합이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신성 양상들에 대한 타당한 묘사인 반면, 어쨌든 그 신성 양상들과 완전하게 조화-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 이 삼위일체의 다른 현상들이 존재함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3. 절대 삼위일체. 이것은 모든 신성 가치들에 관하여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우주 운명 완료자의 집단화이다. 이러한 삼원적 집단화의 특정한 다른 현상들은 확대하는 조화우주에 있어서 신성이 아닌 다른 것과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체험적 신(神)의 힘과 개인성 양상들이 현재 체험적 합성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신성 현상과 통합되고 있다.

이들 세 삼위일체들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이룩한 관계적-연합은 실체의 무제한적인 집단성활동이라는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집단화는 원인, 중간, 그리고 최종들을 포함한

therefore must they always be presented as relativities.

106:8.2 (1170.5) The Trinity of Trinities exists in several phases. It contains possibilities, probabilities, and inevitabilities that stagger the imaginations of beings far above the human level. It has implications that are probably unsuspected by the celestial philosophers, for its implications are in the trinities, and the trinities are, in the last analysis, unfathomable.

106:8.3 (1170.6)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the Trinity of Trinities can be portrayed. We elect to present the three-level concept, which is as follows:

106:8.4 (1170.7) 1. The level of the three Trinities.

106:8.5 (1170.8) 2. The level of experiential Deity.

106:8.6 (1170.9) 3. The level of the I AM.

106:8.7 (1170.10) These are levels of increasing unification. Actually the Trinity of Trinities is the first level, while the second and third levels are unification-derivatives of the first.

106:8.8 (1171.1) THE FIRST LEVEL: On this initial level of associ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three Trinities function as perfectly synchronized, though distinct, groupings of Deity personalities.

106:8.9 (1171.2) 1. *The Paradise Trinity*, the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 Father, Son, and Spiri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Paradise Trinity implies a threefold function — an absolute function, a transcendental function (Trinity of Ultimacy), and a finite function (Trinity of Supremacy). The Paradise Trinity is any and all of these at any and all times.

106:8.10 (1171.3) 2. *The Ultimate Trinity*. This is the deity association of the Supreme Creators, God the Supreme, and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While this is an adequate presentation of the divinity aspects of this Trinity,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re are other phases of this Trinity, which, however, appear to be perfectly coordinating with the divinity aspects.

106:8.11 (1171.4) 3. *The Absolute Trinity*. This is the grouping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the Consummator of Universe Destiny in regard to all divinity values. Certain other phases of this triune grouping have to do with other-than-divinity values in the expanding cosmos. But these are unifying with the divinity phases just as the power and the personality aspects of the experiential Deities are now in process of experiential synthesis.

106:8.12 (1171.5) The association of these three Trinities in the Trinity of Trinities provides for a possible unlimited integration of reality. This grouping contains causes, intermediates, and

다; 시작자, 실현자, 그리고 성취자들을 포함한다; 시작, 실존, 그리고 운명들을 포함한다. 아버지-아들 협력은 아들-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영-최극자가 되고 계속하여 최극-궁극자와 궁극-절대자가 되고, 심지어는 절대자와 아버지-무한자-실체의 순환의 완성—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신성과 개인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이, 자아-실존의 절대성으로부터, 자아-계시의 무한함을 거쳐, 자아-실현의 최종에 이르기까지—실존하는 절대로부터 체험의 최종에 이르기까지—영원의 순환 주위에서 실체의 한계-없음을 자아-실현한다.

두 번째 차원: 세 삼위일체들의 조화-협동은 필연적으로 체험적 신(神)들의 연관적 연합을 내포하는데, 그들은 이 삼위일체들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번째 차원의 자연본성은 때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왔다:

1. 최극자. 이것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자-창조적 자녀들과의 체험적 연락 속에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합일에 대한 신(神) 귀결이다. 최극자는 유한한 진화의 첫 번째 단계의 완성에 대한 신(神) 체현이다.

2. 궁극자. 이것은 두 번째 삼위일체, 신성의 초월적이며 아(亞)절대 개인화구현의 결국 생겨난 합일체에 대한 신(神) 귀결이다. 궁극자는 여러 본질특성들의 가변적으로 간주되는 합일 속에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최소한 통제를 지도하고 개인적으로 체험 가능하며 긴장 속에서 통합하는 궁극위의 그 위상들을 포함하기에 적합하겠지만, 결국 생겨난 신(神)의 계시되지 않은 다른 많은 측면들이 존재한다. 궁극자와 최극자는 서로 비슷한 반면, 동일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궁극자는 단순히 최극자가 확장된 것이 아니다.

3. 절대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에 있어서의 세 번째 구성원의 성격에 적용되는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절대자 하느님은 이 관계적-연합 안에 삼위일체 절대자의 최종적 기능에 대한 개인성 귀결로서 의심할 여지없이 참여되지만, 신(神) 절대자는 영원 지위의 실존적 실체이다.

세 번째의 이 구성원에 관한 개념 상충은 그러한 구성원에 대한 전제가 실제로 오직 하나의 절대자를 내포한다는 사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 절대자들의 체험적 통일을 하나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무한 속에서 그리고 실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절대자만이 존재한다. 세 번째의 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에게처럼 그것이 가장 분명치 못한 반면, 그러한 것이 상상도 못한 연락과 조화우주 현시활동의 어떤 형태로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로 구성될 수 있음이

finals; inceptors, realizers, and consummators; beginnings, existences, and destinies. The Father-Son partnership has become Son-Spirit and then Spirit-Supreme and on to Supreme-Ultimate and Ultimate-Absolute, even to Absolute and Father-Infinite — the completion of the cycle of reality. Likewise, in other phases not so immediately concerned with divinity and personality, does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self-realize the limitlessness of reality around the circle of eternity, from the absoluteness of self-existence, through the endlessness of self-revelation, to the finality of self-realization — from the absolute of existentials to the finality of experientials.

106:8.13 (1171.6) THE SECOND LEVEL: The co-ordination of the three Trinities inevitably involves the associative union of the experiential Deities, who are genetically associated with these Trinities. The nature of this second level has been sometimes presented as:

106:8.14 (1171.7) 1. *The Supreme*. This i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in experiential liaison with the Creator-Creative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is the deity embodiment of the completion of the first stage of finite evolution.

106:8.15 (1171.8) 2. *The Ultimate*. This is the deity consequence of the eventuated unity of the second Trinity, the transcendental and absonite personification of divinity. The Ultimate consists in a variably regarded unity of many qualities, and the human conception thereof would do well to include at least those phases of ultimacy which are control directing, personally experiential, and tensionally unifying, but there are many other unrevealed aspects of the eventuated Deity. While the Ultimate and the Supreme are comparable, they are not identical, neither is the Ultimate merely an amplification of the Supreme.

106:8.16 (1172.1) 3. *The Absolute*. There are many theories held as to the character of the third member o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God the Absolute is undoubtedly involved in this association as the personality consequence of the final function of the Trinity Absolute, yet the Deity Absolute is an existential reality of eternity status.

106:8.17 (1172.2) The concept difficulty regarding this third member is inherent in the fact that the presupposition of such a membership really implies just one Absolute. Theoretically, if such an event could take place, we should witness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s as one. And we are taught that, in infinity and *existentially*, there is one Absolute. While it is least clear as to who this third member can be, it is often postulated that such may consist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in some form of unimagined liaison and cosmic

종종 가정된다.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세 절대자들의 충만한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한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세 절대자들은 모든 무한 잠재들의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될 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구성원이 우주 절대자로 생각된다면, 만일 이 개념이 우주 절대자를 정적이고 잠재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연관적인 존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왜곡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신(神)의 기능에 있어서의 창조적이고 진화적인 측면들에 대한 관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분별화되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만약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최극자 하느님과 궁극자 하느님 그리고 절대자 하느님의 연합은, 이들 체험적 신(神)들에게 선조가 되는 개인적 삼위일체들의 연합에서의 개인적 반향으로 묘사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 세 체험적 신(神)들이, 첫 번째 차원을 이루는 그들의 조상이고 원인이 되는 삼위일체들이 점점 더 합일하는 직접적인 결과로 두 번째 차원에서 확실하게 통합하리라는 견해를 과감하게 제시한다.

첫 번째 차원은 세 삼위일체들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차원은 체험적-진화된, 체험적-결국 생겨난, 그리고 체험적-실존적 신(神) 개인성들의 개인성 관계적-연합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삼위일체들의 완벽한 삼위일체를 납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두 번째 차원에서의 이 세 신(神)들의 개인적 관계적-연합은 장엄자가 신(神)구현화 되는 현상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우주 시대에 현시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이 두 번째 차원에서 신(神) 절대자에 의해 실재화 되었고, 궁극자를 통하여 그리고 최극존재의 최초의 창조적 명령에 반응하여 행동한다.

세 번째 차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 위에 세워진 분별불가적 가정(假定) 속에는, 무한의 영원 속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거나 또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체에 대한 모든 현상의 상호관련성이 포용되어 있다. 최극존재는 영(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며 힘 그리고 체험이다. 궁극자는 이 모든 것이며 반면에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가 결합된 개념에서는 훨씬 더 크고, 거기에는 모든 실체 실현의 절대 최종이 포함된다.

최극자와 궁극자 그리고 완벽한 절대자의 연합 속에서는, 스스로 이신 이에 의해 기원적으로 부분화된 그리고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의 출현으로 귀결된 무한의 저들 측면들이 기능적인 재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주의 현자들이 비록 이것을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을 자주 물어본

manifestation. Certainly, the Trinity of Trinities could hardly attain to complete function short of the full un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s, and the three Absolutes can hardly be unified short of the complete realization of all infinite potentials.

106:8.18 (1172.3) It will probably represent a minimum distortion of truth if the third member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conceived as the Universal Absolute, provided this conception envisions the Universal not only as static and potential but also as associative. But we still do not perceive the relationship to the creative and evolutionary aspects of the function of total Deity.

106:8.19 (1172.4) Though a completed concept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difficult to form, a qualified concept is not so difficult. I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is conceived as essentially personal, it becomes quite possible to postulate the union of God the Supreme, God the Ultimate, and God the Absolute as the personal repercussion of the union of the personal Trinities who are ancestral to these experiential Deities. We venture the opinion that these three experiential Deities will certainly unify on the second level as the direct consequence of the growing unity of their ancestral and causative Trinities who constitute the first level.

106:8.20 (1172.5) The first level consists of three Trinities; the second level exists as the personality association of experiential-evolved, experiential-eventuated, and experiential-existential Deity personalities. And regardless of any conceptual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mplete Trinity of Trinities, the personal association of these three Deities on the second level has become manifest to our own universe age in the phenomenon of the deitization of Majeston, who was actualized on this second level by the Deity Absolute, acting through the Ultimate and in response to the initial creative mandate of the Supreme Being.

106:8.21 (1172.6) THE THIRD LEVEL: In an unqualified hypothesis o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there is embraced the correlation of every phase of every kind of reality that is, or was, or could be in the entirety of infinity. The Supreme Being is not only spirit but also mind and power and experience. The Ultimate is all this and much more, while, in the conjoined concept of the oneness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there is included the absolute finality of all reality realization.

106:8.22 (1172.7) In the union of the Supreme, Ultimate, and the complete Absolute, there could occur the functional reassembly of those aspects of infinity which were originally segmentalized by the I AM, and which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Though the universe philosophers deem this to be a most

다: 만일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차원이 삼위일체 합일을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 그러한 신(神) 합일의 결과로 발생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체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스스로 이신의 실현으로 직접 인도하게 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개인적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알 수 없는 스스로 이신 이가 이미 아버지-무한자로 체험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비(非)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절대적 운명들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오직 영원만이 분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멀리 있는 생겨남이 개인적 창조체들일 것이라고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개인성들의 최종 운명이 동일한 이 개인성들의 우주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우리가 과거 영원 속에서 스스로 이신 이를 철학적으로 상상할 때, 그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영원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이신 이가 실존적인 것으로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광대한 체험적 차이를 바라보려는 경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스스로 이신 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충만한 자아-실현을 내포한다.—그것은 스스로 이신의 자아-계시 속에 의지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고 무한의 전체 세계의 절대적인 의지적 부분들, 절대적인 아버지의 최종적 아들들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개인성들의 한계 없는 은하계를 포용한다.

제 9 장. 실존적 무한 통일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실체의 가능한 체험적 통일을 가정하며,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먼 훗날의 영원인 절대적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우주 시대와 미래의 우주 시대 중에서처럼,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무한의 실재적이고 현재적인 통일이 있다; 그러한 통일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속에 실존한다. 체험적 실체로서의 무한 통일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훗날의 일이지만, 무한의 분별불가적 합일은 우주 실존의 현재 순간을 지배하며, 모든 실체의 다양성을 실존적 장엄성, 곧 절대인 것과 연합시킨다.

유한한 창조체들이 더할 나위 없는 영원의 최종 차원들에서의 무한한 통일을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유한한 실존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지적 한계들에 직면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체험은 창조체 개념에게 방해물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간이 없고 공간에서 분리되며 체험이 제외된다면 어떤 창조체라도 우주 실체에 대한 제한된 이해마저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는, 어떤 진화적 창조체도 순차되는 관계들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떤 창조체도 동시성의 관계들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remote probability, still, we often ask this question: If the second level of the Trinity of Trinities could ever achieve trinity unity, what then would transpire as a consequence of such deity unity? We do not know, but we are confident that it would lead directly to the realization of the I AM as an experiential attainable. From the standpoint of personal beings it could mean that the unknowable I AM had become experiential as the Father-Infinite. What these absolute destinies might mean from a nonpersonal standpoint is another matter and one which only eternity could possibly clarify. But as we view these remote eventualities as personal creatures, we deduce that the final destiny of all personalities is the final knowing of the Universal Father of these selfsame personalities.

106:8.23 (1173.1) As we philosophically conceive of the I AM in past eternity, he is alone, there is none beside him. Looking forward into future eternity, we do not see that the I AM could possibly change as an existential, but we are inclined to forecast a vast experiential difference. Such a concept of the I AM implies full self-realization — it embraces that limitless galaxy of personalities who have become volitional participants in the self-revelation of the I AM, and who will remain eternally as absolute volitional parts of the totality of infinity, final sons of the absolute Father.

9. EXISTENTIAL INFINITE UNIFICATION

106:9.1 (1173.2) In the concept of the Trinity of Trinities we postulate the possibl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limitless reality, and we sometimes theorize that all this may happen in the utter remoteness of far-distant eternity. But there is nonetheless an actual and present unification of infinity in this very age as in all past and future universe ages; such unification is existential in the Paradise Trinity. Infinity unification as an experiential reality is unthinkable remote, but an unqualified unity of infinity now dominates the present moment of universe existence and unites the divergencies of all reality with an existential majesty that is absolute.

106:9.2 (1173.3) When finite creatures attempt to conceive of infinite unification on the finality levels of consummated eternity, they are face to face with intellect limitations inherent in their finite existences. Time, space, and experience constitute barriers to creature concept; and yet, without time, apart from space, and except for experience, no creature could achieve even a limited comprehension of universe reality. Without time sensitivity, no evolutionary creature could possibly perceive the relations of sequence. Without space perception, no creature could

체험이 없이는 어떤 진화적 창조제도 존재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무한성의 일곱 절대자들이 실제로 체험을 초월하고, 이것들도 특정한 차원에서는 체험적일 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체험은 상대적 실체 인식에 있어서 필사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실체 인식을 완성함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필사자들과 다른 많은 우주적 창조체들은 잠재들을 공간 속에 실재화 되는 것으로 그리고 시간 속에 결실을 향하여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이러한 전체 과정은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실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간-공간 현상이다. 절대적인 차원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잠재들은 실재적인 것들로 인식되어 거기에 존재할 것이다.

모든 실체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이 우주 시대 또는 다른 어느 우주 시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실존적 그리고 체험적. 그러한 합일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인 실현의 과정 중에 있지만, 이러한 삼중 삼위일체의 명백한 실재화구현의 정도는 조화우주 안에 있는 실체의 분별된-자격들과 불완전들이 사라지는 것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러나 실체의 전체 집대성활동은 분별불가적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그리고 실존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바로 그 우주 순간에서, 무한한 실체가 절대적으로 통합된다.

체험적인 관점과 실존적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역설은 불가피하며,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필사자들이 오직 시간-공간 상대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각각 하나의 영원 관계라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입각하고 있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점차적인 체험적 실재화구현에 대한 인간 개념—시간 관점—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화구현—영원 관점—임을 추가적으로 가정함으로써 보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유한한 필사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제안하는 진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무한의 실존적 통일이라는 것과, 체험적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실재적 현존과 완성된 현시활동을 간파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상호적 왜곡에 기인된다는 것이다:

1. 제한된 인간적 관점, 분별불가적인 영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

2. 불완전한 인간적 지위, 체험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멀리 떨어짐.

3. 인간 실존의 목적, 인류가 체험이라는 기법에 의해 진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음과,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체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절대자만이 실존적인 동시에 체험적이다.

fathom the relations of simultaneity. Without experience, no evolutionary creature could even exist; only the Seven Absolutes of Infinity really transcend experience, and even these may be experiential in certain phases.

106:9.3 (1173.4) Time, space, and experience are man's greatest aids to relative reality perception and yet his most formidable obstacles to complete reality perception. Mortals and many other universe creatures find it necessary to think of potentials as being actualized in space and evolving to fruition in time, but this entire process is a time-space phenomenon which does not actually take place on Paradise and in eternity. On the absolute level there is neither time nor space; all potentials may be there perceived as actuals.

106:9.4 (1173.5) The concept of the unification of all reality, be it in this or any other universe age, is basically twofold: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Such a unity is in process of experiential realiz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but the degree of the apparent actualization of this threefold Trinity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isappearance of the qualifications and imperfections of reality in the cosmos. But total integration of reality is unqualifiedly and eternally and existentially present in the Paradise Trinity, within which, at this very universe moment, infinite reality is absolutely unified.

106:9.5 (1174.1) The paradox created by the experiential and the existential viewpoints is inevitable and is predicated in part on the fact that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Trinity of Trinities are each an eternity relationship which mortals can only perceive as a time-space relativity. The human concept of the gradual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the Trinity of Trinities — the time viewpoint — must b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ostulate that this is already a factualization — the eternity viewpoint. But how can these two viewpoints be reconciled? To finite mortals we suggest the acceptance of the truth that the Paradise Trinity is the existential unification of infinity, and that the inability to detect the actual presence and completed manifestation of the experiential Trinity of Trinities is in part due to reciprocal distortion because of:

106:9.6 (1174.2) 1. The limited human viewpoint, the inability to grasp the concept of unqualified eternity.

106:9.7 (1174.3) 2. The imperfect human status, the remoteness from the absolute level of experientials.

106:9.8 (1174.4) 3. The purpose of human existence, the fact that mankind is designed to evolve by the technique of experience and, therefore, must be inherently and constitutively dependent on experience. Only an Absolute can be both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서 우주 아버지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스스로 이신 이이며, 아버지를 무한으로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한계 때문이다. 실존적, 단독의, 도달할 수 없는 스스로 이신 이 이전-삼위일체에서의 개념과, 삼위일체들의 체험적인 이후-삼위일체이며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 이신 이에서의 가정은 하나이며 그리고 동일한 가설이다; 어떤 실재적 변화도 무한자 속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발전들은 실체를 수용하고 그리고 조화우주적인 올바른 이해에 대한 증가된 수용력 때문이다.

스스로이신이는 결국 이전의 모든 실존적인 것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체험적인 것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관념들이 인간 마음 안에서 영원과 무한에 대한 역설들을 규명하지 못하는 반면, 적어도 그러한 유한한 지능들을 자극하여, 결코-끝남이 없는 이들 문제,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자로서의 너희에게, 그리고 널리 퍼진 우주 안에서 너희 영원한 생애의 끝남이 없는 미래에 두루 그곳에서의 너희의 호기심을 돋우게 될 이들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잡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조만간, 모든 우주 개인성들은 영원에 대한 마지막 탐색이 무한에 대한 끝없는 탐험, 첫째 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끝없는 탐험 여행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모든 창조체 성장이 아버지 정제화구현에 비례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에 이르는 영원한 신분증임을 납득하게 된다. 필사자들은 언젠가는 무한자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이 아버지를-닮음의 성취에 비례한다는 사실과, 이 우주 시대 안에서 아버지의 실체들이 신성의 본질특성들 안에 계시된다는 사실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성의 본질특성들은 신성하게 사는 삶의 체험 안에서 우주적 창조체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합당하게 소유된다, 그리고 신성하게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재적으로 실천함을 의미한다.

물질적이고 진화적이며 유한한 창조체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에 근거를 두고있는 일생이 개인성 경기장 안에서 영적극위의 달성으로 직접 인도하며, 그러한 창조체들을 아버지-무한자에 대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리고 간다. 그러했을 때 아버지 일생이란 진리에 근거를 두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선(善)으로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하느님을-아는 개인은 경배로 인하여 내적으로 빛을 받게 되고, 외적으로는 모든 개인성들의 우주적 형제신분, 자비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그러한 봉사의 사명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편 모든 이러한 일생 본질특성은 조화우주 지혜, 자아-실현, 하느님-발견, 그리고 아버지 경배에서의 언제까지나-상승하는 차원들 위에서, 진화하는 개인성 안에서 통합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106:9.9 (1174.5) The Universal Father in the Paradise Trinity is the I AM of the Trinity of Trinities, and the failure to experience the Father as infinite is due to finite limitations. The concept of the *existential*, solitary, pre-Trinity nonattainable I AM and the postulate of the *experiential* post-Trinity of Trinities and attainable I AM are one and the same hypothesis; no actual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Infinite; all apparent developments are due to increased capacities for reality reception and cosmic appreciation.

106:9.10 (1174.6) The I AM, in the final analysis, must exist *before* all existentials and *after* all experientials. While these ideas may not clarify the paradoxes of eternity and infinity in the human mind, they should at least stimulate such finite intellects to grapple anew with these never-ending problems, problems which will continue to intrigue you on Salvington and later as finaliters and on throughout the unending future of your eternal careers in the wide-spreading universes.

106:9.11 (1174.7) Sooner or later all universe personalities begin to realize that the final quest of eternity is the endless exploration of infinity, the never-ending voyage of discovery into the absolutenes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Sooner or later we all become aware that all creature growth is proportional to Father identification. We arrive at the understanding that living the will of God is the eternal passport to the endless possibility of infinity itself. Mortals will sometime realize that success in the quest of the Infinit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chievement of Fatherlikeness, and that in this universe age the realities of the Father are revealed within the qualities of divinity. And these qualities of divinity are personally appropriated by universe creatures in the experience of living divinely, and to live divinely means actually to live the will of God.

106:9.12 (1175.1) To material, evolutionary, finite creatures, a life predicated on the living of the Father's will leads directly to the attainment of spirit supremacy in the personality arena and brings such creatures one step nearer the comprehension of the Father-Infinite. Such a Father life is one predicated on truth, sensitive to beauty, and dominated by goodness. Such a God-knowing person is inwardly illuminated by worship and outwardly devoted to the wholehearted service of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all personalities, a service ministry which is filled with mercy and motivated by love, while all these life qualities are unified in the evolving personality on ever-ascending levels of cosmic wisdom, self-realization, God-finding, and Father worship.

106:9.13 (1175.2) [Presented by a Melchizedek of

Nebadon.]

제 107 편 생각조절자의 기원과 본성

⇨ 106

유랜시아 책

10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7 편 생각조절자의 기원과 본성

섹션

소개

- 제 1 장. 생각 조절자의 기원
- 제 2 장. 조절자의 분류
- 제 3 장. 조절자의 신성별 고향
- 제 4 장. 조절자의 본성과 현존
- 제 5 장. 조절자 마음작용
- 제 6 장. 순수 영으로서의 조절자
- 제 7 장. 조절자와 개인성

소개

우주 아버지 자신은, 우주의 가장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거하고 계실지라도, 시간의 수 없이 많은 그의 자녀들 마음속에 신비 감시자들로써 내주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주 전체에 계신다. 영원한 아버지는 그의 필사 아들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자 동시인 곳으로 물러나 있으며, 그리고 친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절자들은 사람들의 혼 속에 육신화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실재성이다; 그들은 필사자 마음 속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한 진정한 약속이다; 그들은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우주의 우주를 지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을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는 신성한 기법을 점진적으로 습득함에 따라 시간 속에서 미리-맛볼 수 있는, 사람의 완전해진 최종자 개인성의 본질이다.

자신이 완전함과 같이 사람에게 완전해질 것을 명하시는 하느님은, 그렇게 정해진 하늘의 운명을 달성하는 사람의 체험적 상대자가 되기 위하

PAPER 107

ORIGIN AND NATURE OF THOUGHT
ADJUSTERS

SECTIONS

Introduction

- 1. Origin of Thought Adjusters
- 2. Classification of Adjusters
- 3. The Divinington Home of Adjusters
- 4. Nature and Presence of Adjusters
- 5. Adjuster Mindedness
- 6. Adjusters as Pure Spirits
- 7. Adjusters and Personality

INTRODUCTION

107:0.1 (1176.1) ALTHOUGH the Universal Father is personally resident on Paradise, at the very center of the universes, he is also actually present on the worlds of space in the minds of his countless children of time, for he indwells them as the Mystery Monitors. The eternal Father is at one and the same time farthest removed from, and most intimately associated with, his planetary mortal sons.

107:0.2 (1176.2) The Adjusters are the actuality of the Father's love incarnate in the souls of men; they are the veritable promise of man's eternal career imprisoned within the mortal mind; they are the essence of man's perfected finaliter personality, which he can foretaste in time as he progressively masters the divine technique of achieving the living of the Father's will, step by step, through the ascension of universe upon universe until he actually attains the divine presence of his Paradise Father.

107:0.3 (1176.3) God, having commanded man to be perfect, even as he is perfect, has descended as the Adjuster to become man's experiential partner

여 조절자로 내려왔다.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은,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사람이 비록 육신의 때에 있어도 그 아들관계를 찾으려고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성한 조절자와 관계적-연합으로 사람은 우주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분별불가한 보증이다.

창조자 아들을 본 모든 필사자는 우주 아버지를 본 것이며, 신성한 조절자가 내주하는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내주 하신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필사자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조절자 현존의 의식은 하느님 현존의 의식이다. 사람의 진화하는 혼과 조절자의 영원한 융합은, 신(神)의 우주 연관-동료로서 하느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사실적 체험이다.

사람의 안에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기, 그리고 그곳에서 신(神)의 실제적 개인 앞에서 신성한 선물의 무한한 근원을 경배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갈망과 멈출 수 없는 바램을 일으키는 것이 조절자이다. 조절자는 실제적으로 필사자 아들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연결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더욱 가깝게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현존이다. 조절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의 떨어져있는 거리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편성에 대비된 그의 부분성의 정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거대한 우주 긴장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상적으로 동등화를 이루는 것이다.

조절자는 유한한 창조체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 창조체의 선택에 따라서 이 일시적인 하느님과 사람의 연합을 결국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끝남이 없는 우주 봉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의 계층으로 참되게 실재화하는, 무한 존재의 절대 본질이다. 조절자는 하느님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진리가 사실이 되도록 하는 신성한 우주실체이다. 조절자는 사람의 혼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리고 잘못됨이 없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사람의 우주 나침반이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의지 창조체들은 존재에서의 세 가지 일반적인 발전 단계를 거친다: 조절자가 도착할 때부터 비교적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스무 살까지, 감시자는 때때로 생각 변경자라고 정의된다. 이 때부터 분별력의 나이를 달성하기 까지, 약 마흔 살에 이르기까지, 신비 감시자는 생각 조절자라 불린다. 분별력의 달성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종종 생각 통제자로서 언급되고 있다. 필사자 일생에서의 이들 세 위상은, 마음의 복제와 혼의 진화에서 조절자가 진보하는 세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in the achievement of the supernal destiny which has been thus ordained. The fragment of God which indwells the mind of man is the absolute and unqualified assurance that man can find the Universal Father in association with this divine Adjuster, which came forth from God to find man and sonship him even in the days of the flesh.

107:0.4 (1176.4) Any mortal who has seen a Creator Son has seen the Universal Father, and he who is indwelt by a divine Adjuster is indwelt by the Paradise Father. Every mortal who i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following the leading of his indwelling Adjuster is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Consciousness of Adjuster presence is consciousness of God's presence. Eternal fusion of the Adjuster with the evolutionary soul of man is the factual experience of eternal union with God as a universe associate of Deity.

107:0.5 (1176.5) It is the Adjuster who creates within man that unquenchable yearning and incessant longing to be like God, to attain Paradise, and there before the actual person of Deity to worship the infinite source of the divine gift. The Adjuster is the living presence which actually links the mortal son with his Paradise Father and draws him nearer and nearer to the Father. The Adjuster is our compensatory equalization of the enormous universe tension which is created by the distance of man's removal from God and by the degree of his partiality in contrast with the universality of the eternal Father.

107:0.6 (1176.6) The Adjuster is an absolute essence of an infinite being imprisoned within the mind of a finite creature which, depending on the choosing of such a mortal, can eventually consummate this temporary union of God and man and veritably actualize a new order of being for unending universe service. The Adjuster is the divine universe reality which factualizes the truth that God is man's Father. The Adjuster is man's infallible cosmic compass, always and unerringly pointing the soul Godward.

107:0.7 (1177.1) On the evolutionary worlds, will creatures traverse three general developmental stages of being: From the arrival of the Adjuster to comparative full growth, about twenty years of age on Urantia, the Monitors are sometimes designated Thought Changers. From this time to the attainment of the age of discretion, about forty years, the Mystery Monitors are called Thought Adjusters. From the attainment of discretion to deliverance from the flesh, they are often referred to as Thought Controllers. These three phases of mortal lif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three stages of Adjuster progress in mind duplication and soul evolution.

제 1 장. 생각 조절자의 기원

1. ORIGIN OF THOUGHT ADJUSTERS

생각 조절자는 기원적인 신(神)의 본질임으로, 누구도 그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권위 있게 강연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구원자별의 전통들과 유버사에서 믿고 있는 것들을 전할뿐이고, 우리가 이 신비 감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우주 전체에 걸친 그들과 연관되어있는 실존개체를 설명할 뿐이다.

생각 조절자가 증여되는 양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하여는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들이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우주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아왔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무한한 하느님의 사실적 현존을 구성하고 있는 단편화된 실존개체이다. 계시되지 않은 많은 그들의 연관자들과 함께, 조절자들은 혼합되거나 희석되지 않은 신성이며, 신(神)의 분별불가하고 그리고 줄어들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것이며,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하느님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성에서 분리된 실존으로 개별화되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의 숫자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인간 마음에 내주하기 위하여 시간의 행성들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의 그들의 생애들에 대하여 조금만 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삼원적 운명 완결; 어떤 필사 상승자와의 융합에 의한 개인성의 달성, 우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한 개인성의 달성,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부여된 임무들로부터 해방이 포함되는 그들의 조화우주 진보 과정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절자들이 우주의 팽창에 따라, 그리고 조절자와의 융합을 위한 후보자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별존재화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하느님 자신처럼, 그의 불가해한 자연본성의 이 단편들이 실존적으로 무한할 수 있듯이;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절자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

생각 조절자의 기원에 대한 기법은 우주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기능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다른 어떤 절대 연관자들도 아버지의 단편(斷片)들의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절자들은 순전히 그리고 영원하게 신성한 선물이다;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느님과 같은 것이다.

융합 창조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은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선언을 깊이 확신시켜 주는 영적 사명활동과 천상의 사랑을 계시해 준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사명활동 외에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우주 아버지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창조체들에게 그들의 개인성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107:1.1 (1177.2) Since Thought Adjusters are of the essence of original Deity, no one may presume to discourse authoritatively upon their nature and origin; I can only impart the traditions of Salvington and the beliefs of Uversa; I can only explain how we regard these Mystery Monitor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107:1.2 (1177.3) Though there are diverse opinions regarding the mode of the bestowal of Thought Adjusters, there exist no such differences concerning their origin; all are agreed that they proceed direct from the Universal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ey are not created beings; they are fragmentized entities constituting the factual presence of the infinite God. Together with their many unrevealed associates, the Adjusters are undiluted and unmixed divinity, unqualified and unattenuated parts of Deity; they are of God, and as far as we are able to discern, *they are God*.

107:1.3 (1177.4) As to the time of their beginning separate existences apart from the absolutenes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do not know; neither do we know their number. We know very little concerning their careers until they arrive on the planets of time to indwell human minds, but from that time on we are more or less familiar with their cosmic progressions up to and including the consummation of their triune destinies: attainment of personality by fusion with some mortal ascender, attainment of personality by fiat of the Universal Father, or liberation from the known assignments of Thought Adjusters.

107:1.4 (1177.5) Although we do not know, we presume that Adjusters are being constantly individualized as the universe enlarges, and as the candidates for Adjuster fusion increase in numbers. But it may be equally possible that we are in error in attempting to assign a numerical magnitude to the Adjusters; like God himself, these fragments of his unfathomable nature may be existentially infinite.

107:1.5 (1177.6) The technique of the origin of the Thought Adjusters is one of the unrevealed functions of the Universal Father.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none of the other absolute associat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ve aught to do with the production of Father fragments. Adjusters are simply and eternally the divine gifts; they are of God and from God, and they are like God.

107:1.6 (1177.7) In their relationship to fusion creatures they reveal a supernal love and spiritual ministry that is profoundly confirmative of the declaration that God is spirit. But there is much that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s transcendent ministry that has never been revealed to Urantia mortals. Neither do we fully understand just what really transpires when the Universal Father gives of

우리는 확실히 납득하지 못한다. 또한 파라다이스 최종자들의 상승하는 진보가 이러한 하느님과 사람의 천상의 동반자관계에 선천적으로 있을, 충분한 가능성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단편들은, 하느님께 절대로서 달성되는 가능성을 끌어안고 있는 운명을 지닌 그들 창조체들에게 절대 하느님의 선물임이 틀림없다.

우주 아버지께서 그의 전(前)개인적 신(神)을 단편화하는 것처럼, 무한한 영도 그의 전(前)마음의 영의 부분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영-융합 계열들의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진화하는 혼에 내주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그렇게 단편화할 수 없다; 기원 아들의 영은 퍼져나가거나 따로 따로 개인성이 될 수 있다. 아들-융합 창조체들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자 아들들의 개별존재화된 증여들과 연합되어있다.

제 2 장. 조절자의 분류

조절자들은 순수한 실존개체로써 개별존재화 되어 있으며, 모두는 해방되거나, 융합되거나, 또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이 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의 일곱 계층이 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지만, 이 구분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종종 계층의 다름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순결의 조절자들: 진화적인 후보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존을 위한 그들의 최초로 임무에 봉사하는 존재. 신비 감시자들은 신성한 본성에서 영원히 동일하다. 그들은 또한 신성별에서 처음으로 나올 때 체험적 본성에 있어서도 동일한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체험적 차이는 우주 사명활동에서의 실제로 체험한 것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2. 진보된 조절자들: 시간 창조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지역우주 현시활동의 영에서의 개별존재화된 하나의 조각 사이에 최종 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의지 창조체들과 함께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여러 세계들에서 봉사한 존재들.

3. 최극 조절자들: 진화하는 세상에서 시간의 모함에 봉사한 이 감시자들, 그러나 그들의 인간 동반자들이 어떤 이유로 영원한 생존을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다른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다른 필사자들 속에서 다른 모함에 그 후로 할당된 자들. 최극 조절자가 순수 감시자보다 신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마음속에서 체험이 적은 조절자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4. 사라진 조절자들: 여기에서 신비 감시자들의 생애를 추적하려는 우리들의 노력들에 중단이 발생한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봉사의 네 번

himself to be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a creature of time. Nor has the ascending progression of the Paradise finalizers as yet disclosed the full possibilities inherent in this supernal partnership of man and God. In the last analysis, the Father fragments must be the gift of the absolute God to those creatures whose destiny encompasses the possibility of the attainment of God as absolute.

107:1.7 (1178.1) As the Universal Father fragmentizes his prepersonal Deity, so does the Infinite Spirit individuate portions of his premind spirit to indwell and actually to fuse with the evolutionary souls of the surviving mortals of the spirit-fusion series. But the nature of the Eternal Son is not thus fragmentable; the spirit of the Original Son is either diffuse or discretely personal. Son-fused creatures are united with individualized bestowals of the spirit of the Creator Sons of the Eternal Son.

2. CLASSIFICATION OF ADJUSTERS

107:2.1 (1178.2) Adjusters are individuated as virgin entities, and all are destined to become either liberated, fused, or Personalized Monitors.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seven orders of Thought Adjusters, although we do not altogether comprehend these divisions. We often refer to the different orders as follows:

107:2.2 (1178.3) 1. *Virgin Adjusters*, those serving on their initial assignment in the minds of evolutionary candidates for eternal survival. Mystery Monitors are eternally uniform in divine nature. They are also uniform in experiential nature as they first go out from Divinington; subsequent experiential differentiation is the result of actual experience in universe ministry.

107:2.3 (1178.4) 2. *Advanced Adjusters*, those who have served one or more seasons with will creatures on worlds where the final fusion takes place between the identity of the creature of time and an individualized portion of the spirit of the local universe manifesta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107:2.4 (1178.5) 3. *Supreme Adjusters*, those Monitors that have served in the adventure of time on the evolutionary worlds, but whose human partners for some reason declined eternal survival, and those that have been subsequently assigned to other adventures in other mortals on other evolving worlds. A supreme Adjuster, though no more divine than a virgin Monitor, has had more experience, can do things in the human mind which a less experienced Adjuster could not do.

107:2.5 (1178.6) 4. *Vanished Adjusters*. Here occurs a break in our efforts to follow the careers of the Mystery Monitors. There is a fourth stage of

째 단계가 있다. 멜기세덱들은 이 네 번째 단계의 조절자들이 우주들의 우주를 배회하는 분리된 임무에 있다고 가르친다. 단독 메신저들은 이들이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같이 있으며, 아버지 자신과 새롭게 되는 관계적-연합의 기간을 즐긴다고 믿고자 한다. 그리고 조절자가 주 우주를 전재(全在)하는 아버지와 같이 동시적으로 배회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5. 해방된 조절자들: 진화하는 구체들의 필사자들을 위한 시간의 봉사에서 영원히 해방된 이 신비 감시자들. 그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6. 융합된 조절자들:—최종자들—초우주들에서 상승하는 창조체들과 하나가 되는 존재들. 파라다이스 최종의 무리단의 시간 상승자들의 영원한 동반자들. 생각 조절자들은 통상적으로 시간의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합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승자별의 출입에 등록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존재의 경로를 따른다. 상승하는 진화적 혼들과 융합하면 조절자는 우주의 절대 실존 차원으로부터 전환되어 상승하는 개인성과 기능적으로 관계적-연합하는 유한한 체험차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존으로서의 신성한 본성의 모든 특성들을 보유하면서도, 융합된 조절자는 생존하는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불가분의 연결을 이룬다.

7.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육신화 한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사명활동하는 영들과, 필사자 안에 내주하는 동안 비상한 업적을 성취하였으나 그들의 주체들이 생존을 거절한 다수의 조절자. 그러한 조절자들이 초우주의 임무를 위해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지시에 따라 개인성구현되었다고 우리들이 믿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이들 신비로운 하느님의 단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우주임무에 따라서, 개별적인 필사자의 내주에서의 성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을 위한 필사 후보자의 인종 계통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service about which we are not sure. The Melchizedeks teach that the fourth-stage Adjusters are on detached assignments, roaming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Solitary Messengers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they are at one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enjoying a period of refreshing association with the Father himself. And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an Adjuster could be roaming the master universe simultaneously with being at one with the omnipresent Father.

107:2.6 (1178.7) 5. *Liberated Adjusters*, those Mystery Monitors that have been eternally liberated from the service of time for the mortals of the evolving spheres. What functions may be theirs, we do not know.

107:2.7 (1179.1) 6. *Fused Adjusters* — finaliters — those who have become one with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superuniverses, the eternity partners of the time ascenders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Thought Adjusters ordinarily become fused with the ascending mortals of time, and with such surviving mortals they are registered in and out of Ascendington; they follow the course of ascendant beings. Upon fusion with the ascending evolutionary soul, it appears that the Adjuster translates from the absolute existential level of the universe to the finite experiential level of functional association with an ascending personality. While retaining all of the character of the existential divine nature, a fused Adjuster becomes indissolubly linked with the ascending career of a surviving mortal.

107:2.8 (1179.2) 7. *Personalized Adjusters*, those who have served with the incarnated Paradise Sons, together with many who have achieved unusual distinction during the mortal indwelling, but whose subjects rejected survival. We have reasons for believing that such Adjusters are personaliz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their assignment.

107:2.9 (1179.3)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these mysterious God fragment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universe assignment, by the measure of success in the indwelling of an individual mortal, or even by the racial ancestry of the mortal candidate for fusion.

제 3 장. 조절자의 신성별 고향

모든 일곱 초우주들에서의 봉사에 신비 감시자들을 보내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귀환하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우주 활동들은 신성별의 신성한 구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아는 한, 조절자들과 아버지의 다른 실존개체들만이 그 구체에 있다. 아직 계시되지 않은 무수한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이 조절자들과 함께 신성별을 고향 구체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들 연관-동료 실존개체들이 신비 감시자들의 현재와

3. THE DIVININGTON HOME OF ADJUSTERS

107:3.1 (1179.4) All universe activities related to the dispatch, management, direction, and return of the Mystery Monitors from service in all of the seven superuniverses seem to be centered on the sacred sphere of Divinington. As far as I know, none but Adjusters and other entities of the Father have been on that sphere. It seems likely that numerous unrevealed prepersonal entities share Divinington as a home sphere with the Adjusters.

미래 사명활동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고향으로 보이는 영역, 신성별로 돌아간다; 아마 이러한 체험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에 있는 개인성뿐만 아니라 이 비밀구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의 신성에 대한 특별한 현시활동과도 실제적인 접촉을 할 것이다.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있는 일곱 개의 비밀구체에 대하여 다소 알고 있지만, 다른 곳들에 비교한다면 신성별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는 것과 같다. 높은 영적 계층의 존재들은 오직 세 가지의 신성한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선배들과 상급자들의 체험과 자질에 대하여 항상 합당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2. 후배들과 종속들의 한계와 무(無)체험에 항상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

3. 신성별 해안에 착륙을 시도하지 마라.

내가 신성별에 가는 것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가끔 심사숙고했다, 아마 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외에는 어떤 거주하는 존재들도 볼 수가 없으며, 그리고 또 그러한 존재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나 실제적인 가치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신성별에 없다는 것이며, 나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을 리가 없다.

신성별에서 조절자의 본성이나 기원에 대하여 배울 것이 조금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많은 다른 근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지식이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누적된 자료를 조합하고, 연관하고, 그리고 상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조절자에 의해 제시된 용기와 지혜가 그들은 광범위한 범위와 깊이 있게 훈련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개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은 틀림없이 신성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독특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분명히 신성별에서 조절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직원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앙의 그리고 감독하는 무리단이, 자신의 우주권역의 종족과 인류에게 자신의 질중 증여를 완성하려는, 미가엘 계층의 첫 번째 파라다이스 아들의 지금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주체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실제로 비(非)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We conjecture that these fellow entities may in some manner be associated with the present and future ministry of the Mystery Monitors. But we really do not know.

107:3.2 (1179.5) When Thought Adjusters return to the Father, they go back to the realm of supposed origin, Divinington; and probably as a part of this experience, there is actual contact with the Father's Paradise personality as well as with the specialized manifestation of the Father's divinity which is reported to be situated on this secret sphere.

107:3.3 (1179.6) Although we know something of all the seven secret spheres of Paradise, we know less of Divinington than of the others. Beings of high spiritual orders receive only three divine injunctions, and they are:

107:3.4 (1179.7) 1. Always to show adequate respect for the experience and endowments of their seniors and superiors.

107:3.5 (1179.8) 2. Always to be considerate of the limitations and inexperience of their juniors and subordinates.

107:3.6 (1179.9) 3. Never to attempt a landing on the shores of Divinington.

107:3.7 (1179.10) I have often reflected that it would be quite useless for me to go to Divinington; I probably should be unable to see any resident beings except such as the Personalized Adjusters, and I have seen them elsewhere. I am very sure there is nothing on Divinington of real value or profit to me, nothing essential to my growth and development, or I should not have been forbidden to go there.

107:3.8 (1180.1) Since we can learn little or nothing of the nature and origin of Adjusters from Divinington, we are compelled to gather information from a thousand and one different 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assemble, associate, and correlate this accumulated data in order that such knowledge may be informative.

107:3.9 (1180.2) The valor and wisdom exhibited by Thought Adjusters suggest that they have undergone a training of tremendous scope and range. Since they are not personalities, this training must be imparted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Divinington. The unique Personalized Adjusters no doubt constitute the personnel of the Adjuster training schools of Divinington. And we do know that this central and supervising corps is presided over by the now Personalized Adjuster of the first Paradise Son of the Michael order to complete his sevenfold bestowal upon the races and peoples of his universe realms.

107:3.10 (1180.3) We really know very little about the

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개인성구현된 계층들만 접촉하고 교통한다. 이들은 신성별에서 이름이 지어졌고, 그리고 숫자로써가 아니라 항상 이름으로써 알려진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영원히 신성별에 주소가 정해진다, 그 신성한 구체는 그들의 고향인 것이다. 그들은 오직 우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그곳을 나올 수 있다.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지역우주에서 발견되며, 그러나 대부분은 중앙우주에 있다.

제 4 장. 조절자의 본성과 현존

생각 조절자에 대하여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기원의 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신성의 순수함은 신(神)의 모든 속성들의 잠재 본질, 그 단편 속에 영원하고 무한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우주현존의 절대 본질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확실하다,

조절자의 실제적인 기원은 무한함이 틀림없고, 그리고 진보하는 필사자의 불멸의 혼과 융합하기 이전의, 조절자의 실체는 절대에 가까움이 틀림없다. 조절자들은 우주적 감각이나 신(神)의 감각에서는 절대적이지 아니나, 단편화된 본성의 잠재에서는 아마도 진실로 절대적이다. 그들은 우주성에서는 분별화되지만 본성에서는 아니며, 바깥쪽 확장에서는 유한하지만 의미, 가치 그리고 사실의 안쪽 확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성한 선물들을 아버지의 '분별되어진 절대 단편들'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어떤 조절자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불충한 적이 없었다; 개인 창조체들의 보다 낮은 계층들은 가끔 불충한 동료들과 다투곤 하지만, 조절자들 중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며, 그들은 우주적 기능과 창조체 사명활동의 그들의 천상의 구체에서 최극이며 오류가 없다.

오직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만이 비(非)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을 볼 수 있다. 단독 메신저들로서의 나의 계층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과 함께, 조절자들의 현존을 영적 반응 현상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세라핌천사들도 때로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마음속에 있는 감시자들의 현존과 관계적-연합된 것으로 보이는 영적 광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본성이 진화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융합된 개인성들과의 연합으로 감지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개인성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조절자들의 실제적인 현존을 실제적으로 식별하지 못한다. 조절자들이 우주적으로 불가시적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높고도 배타적인 신성한 기원과 본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신성한 현존에 동반하는, 그리고 일반적인로 생각 조절자들과 연관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nonpersonalized Adjusters; we only contact and communicate with the personalized orders. These are christened on Divinington and are always known by name and not by number. The Personalized Adjusters are permanently domiciled on Divinington; that sacred sphere is their home. They go out from that abode only by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Very few are found in the domains of the local universes, but larger numbers are present in the central universe.

4. NATURE AND PRESENCE OF ADJUSTERS

107:4.1 (1180.4) To say that a Thought Adjuster is divine is merely to recognize the nature of origin. It is highly probable that such purity of divinity embraces the essence of the potential of all attributes of Deity which can be contained within such a fragment of the absolute essence of the universal presence of the eternal and infinite Paradise Father.

107:4.2 (1180.5) The actual source of the Adjuster must be infinite, and before fusion with the immortal soul of an evolving mortal, the reality of the Adjuster must border on absoluteness. Adjusters are not absolutes in the universal sense, in the Deity sense, but they are probably true absolutes within the potentialities of their fragmented nature. They are qualified as to universality but not as to nature; in extensiveness they are limited, but in intensiveness of meaning, value, and fact *they are absolute*. For this reason we sometimes denominate the divine gifts as the qualified absolute fragments of the Father.

107:4.3 (1180.6) No Adjuster has ever been disloyal to the Paradise Father; the lower orders of personal creatures may sometimes have to contend with disloyal fellows, but never the Adjusters; they are supreme and infallible in their supernal sphere of creature ministry and universe function.

107:4.4 (1180.7) Nonpersonalized Adjusters are visible only to Personalized Adjusters. My order, the Solitary Messengers, together with Inspired Trinity Spirits, can detect the presence of Adjusters by means of spiritual reactive phenomena; and even seraphim can sometimes discern the spirit luminosity of supposed association with the presence of Monitors in the material minds of men; but none of us are able actually to discern the real presence of Adjusters, not unless they have been personalized, albeit their natures are perceivable in union with the fused personalities of the ascending mortals from the evolutionary worlds. The universal invisibility of the Adjusters is strongly suggestive of their high and exclusive divine origin and nature.

107:4.5 (1181.1) There is a characteristic light, a spirit luminosity, which accompanies this divine

특정적 빛, 영 광채가 있다.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파라다이스의 광채가 “표시등”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유버사에서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불린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현상을 때때로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고 언급되어 왔다.

우주 아버지께 도달한 모든 존재들은 개인성 구현된 생각 조절자들을 볼 수 있다. 모든 단계들에 있는 조절자들은, 다른 모든 존재들, 실존개체들, 영들, 개인성들, 그리고 영 현시활동들과 함께, 파라다이스의 신(神)에서 기원되고, 그리고 대우주의 주요 정부들을 주재하는 저들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에 의해 항상 식별될 수 있다.

너희는 조절자가 내주 한다는 진정한 의의(意義)를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내주 하면서 너희의 유한한 필사자 본성들과 융합하는, 절대적이며 무한한 신(神), 우주 아버지의 절대 단편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필사 사람이, 전 조화우주의 실존적 원인자의 실제적인 단편과 융합될 때, 그 비슷한 예도 없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동반자 관계의 운명에는 어떤 한계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영원 속에서, 목적을 지닌 신(神)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하느님의 의지를 지닌 단편의 끝남이 없는 잠재성도 발견해갈 것이다. 조절자는 필사자 개인성에게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항상 계시해 주며, 이 천상의 계시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절자가 하느님의 것이며 그리고 필사 사람에게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조절자 마음작용

진화적인 필사자들은 마음을 영과 물질의 우주적 중재라고 보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의 주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들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조절자들은 전(前)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영이 구분되기 이전, 실체의 절대 차원에서의 하느님의 단편들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영이 구분되기 이전의 일원론적 차원에서는 중재되어 질 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재 기능은 있을 수가 없었다.

조절자들은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어울리는 자아신분의 힘들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최초의 또는 순결의 조절자 집단보다 상위의 모든 형태들의 감시자들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무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호간의 교통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시 할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작용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

presence, and which has become generally associated with Thought Adjusters. In the universe of Nebadon this Paradise luminosity is widely known as the “pilot light”; on Uversa it is called the “light of life.” On Urantia this phenomenon has sometimes been referred to as that “true light which lights every man who comes into the world.”

107:4.6 (1181.2) To all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Universal Father, the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visible. Adjusters of all stages, together with all other beings, entities, spirits, personalities, and spirit manifestations, are always discernible by thos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who originate in the Paradise Deities, and who preside over the major governments of the grand universe.

107:4.7 (1181.3) Can you really realize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Adjuster’s indwelling? Do you really fathom what it means to have an absolute fragment of the absolute and infinite Deity, the Universal Father, indwelling and fusing with your finite mortal natures? When mortal man fuses with an actual fragment of the existential Cause of the total cosmos, no limit can ever be placed upon the destiny of such an unprecedented and unimaginable partnership. In eternity, man will be discovering not only the infinity of the objective Deity but also the unending potentiality of the subjective fragment of this same God. Always will the Adjuster be revealing to the mortal personality the wonder of God, and never can this supernal revelation come to an end, for the Adjuster is of God and as God to mortal man.

5. ADJUSTER MINDEDNESS

107:5.1 (1181.4) Evolutionary mortals are prone to look upon mind as a cosmic mediation between spirit and matter, for that is indeed the principal ministry of mind as discernible by you. Hence it is quite difficult for humans to perceive that Thought Adjusters have minds, for Adjusters are fragmentations of God on an absolute level of reality which is not only prepersonal but also prior to all energy and spirit divergence. On a monistic level antecedent to energy and spirit differentiation there could be no mediating function of mind, for there are no divergencies to be mediated.

107:5.2 (1181.5) Since Adjusters can plan, work, and love, they must have powers of selfhood which are commensurate with mind. They are possessed of unlimited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at is, all forms of Monitors above the first or virgin groups. As to the nature and purport of their intercommunications, we can reveal very little, for we do not know. And we further know that they must be minded in some manner else they could

면 결코 개인성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절자의 마음작용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마음작용과 같다—그것은 공동 행위자 마음의 조상이다.

조절자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마음의 유형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전(前)개인적인 수많은 계층의 실존개체들에게 주어진 마음자질과 비슷할 것이다. 이 계층들 중에 많은 존재들이 유란시아에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을 가진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기원적인 신(神)의 이 개별화된 이들은 불멸하는 존재들의 수많은 진화적 유형들과 통합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神)의 단편들과 융합하려는 발전된 능력을 가진 한정된 숫자의 비(非)진화 존재들까지도 통합되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 조절자가 생존하는 인간의 진화적이며 불멸인 모론시아 혼과 융합될 때, 조절자의 마음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적 진보의 영 차원들에 도달할 때까지, 단지 창조체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지속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

상승하는 체험의 최종자 차원에 도달하게 되면, 이 일곱 번째 단계의 영들은 어떤 마음 요소들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요소들은 상승하는 개인성의 신성과 인간 위상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필사자와 조절자의 마음들의 어떤 위상들의 연합을 나타낸다. 이 체험적 마음의 본질특성은 아마도 “최극위(最極位)화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화하는 신(神)—최극존재—의 체험적 자질을 증강시킨다.

제 6 장. 순수 영으로서의 조절자

생각 조절자들이 창조체의 체험 안에서 마주침에 따라서, 그들은 영적 영향의 현존과 인도를 드러낸다. 조절자는 참으로 영, 순수한 영이며, 영 이상의 존재이다. 우리는 신비 감시자들을 한 번도 만족스럽게 구분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하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하느님과-같은이다.

조절자는 사람의 영원 가능성이다. 사람은 조절자의 개인성 가능성이다. 너희의 개별적 조절자들은 너희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희망 속에서 너희를 영으로 만들려고 일하고 있다. 조절자들은 영들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자아-증여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고 신성하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람의 마음 안에 간혀있는 영 희망이다. 그들은 너희 필사자 마음의 신성 성취를 이루기를 그리하여 그들의 고독이 끝이 나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물질적 처지와 시간의 껍질이라는 한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고대한다.

never be personalized.

107:5.3 (1181.6) The mindedness of the Thought Adjuster is like the *mindednes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 that which is ancestral to the *minds* of the Conjoint Actor.

107:5.4 (1181.7) The type of mind postulated in an Adjuster must be similar to the mind endowment of numerous other orders of prepersonal entities which presumably likewise originate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ough many of these orders have not been revealed on Urantia, they all disclose minded qualities. It is also possible for these individuations of original Deity to become unified with numerous evolving types of nonmortal beings and even with a limited number of nonevolutionary beings who have developed capacity for fusion with such Deity fragments.

107:5.5 (1182.1) When a Thought Adjuster is fused with the evolving immortal morontia soul of the surviving human, the mind of the Adjuster can only be identified as persisting apart from the creature's mind until the ascending mortal attains spirit levels of universe progression.

107:5.6 (1182.2) Upon the attainment of the finaliter levels of ascendant experience, these spirits of the sixth stage appear to transmute some mind factor representing a union of certain phases of the mortal and Adjuster minds which had previously functioned as liaison between the divine and human phases of such ascending personalities. This experiential mind quality probably “supremacizes” and subsequently augments the experiential endowment of evolutionary Deity — the Supreme Being.

6. ADJUSTERS AS PURE SPIRITS

107:6.1 (1182.3) As Thought Adjusters are encountered in creature experience, they disclose the presence and leading of a spirit influence. The Adjuster is indeed a spirit, pure spirit, but spirit plus. We have never been able satisfactorily to classify Mystery Monitors; all that can certainly be said of them is that they are truly Godlike.

107:6.2 (1182.4) The Adjuster is man's eternity possibility; man is the Adjuster's personality possibility. Your individual Adjusters work to spiritize you in the hope of eternalizing your temporal identity. The Adjusters are saturated with the beautiful and self-bestowing love of the Father of spirits. They truly and divinely love you; they are the prisoners of spirit hope confined within the minds of men. They long for the divinity attainment of your mortal minds that their loneliness may end, that they may be delivered with you from the limitations of material investiture and the

파라다이스로 가는 너희의 길은 영 달성의 행로이며, 조절자의 본성이 우주 아버지의 영적 본성을 신실하게 계시해 줄 것이다. 파라다이스 상승을 넘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애의 최종자-이후의 단계들에서 조절자는 영적 사명활동이 아닌 다른 어떤 자격으로 한때의 인간이었던 자기의 동반자를 접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상승 그리고 최종자 생애는 하느님을 알고 영성화 되어가는 필사자와 하느님을 계시하는 조절자의 영적 사명활동의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영, 순수한 영이며, 절대 영이라는 것을 추측으로 안다. 그러나 그 조절자는 배타적인 영 실체이상인 무엇이다. 마음을 갖고 있다는 추측 이외에도 순수한 에너지의 요소들도 있다. 하느님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기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단편들이 이 둘 모두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절자들이 파라다이스의 동시적이며 보편적인 중력회로들을 넘어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신비 감시자들이 그렇게 우주와 우주들의 물질적 순환회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 중력 순환회로들을 넘어 대우주 전역에 두루 순식간에 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외부 공간 차원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파라다이스의 중력 현존을 따라서 이 지역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개인성 계층이 대우주의 경계선 너머까지 공동 행위자의 마음 순환회로들을 지나갈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외부 공간의 미지의 영역에서 조절자들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신한 적이 결코 없다.

그리고 조절자들이 물질적-중력 순환회로들을 이용하는 반면, 그들은 물질 창조처럼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조절자들은 중력의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하자면 중력 발현에 선조(先祖)가 되는 실존(實在)의 우주 차원에서, 단편으로 분할된 중력 선조(先祖)의 단편들이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이 증여된 이후로 그들의 필사자 상대들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그들이 신성별을 향하여 출발하는 날까지 이완-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의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은 이러한 잠시 동안의 휴식도 맛보지 못한다. 생각 조절자들은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바로 에너지이며, 가장 높은 차원 그리고 가장 신성한 계층의 에너지이다.

제 7 장. 조절자와 개인성

조절자들은 개인성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실존개체들이며, 그들이 필사자에 내주하는 동안 실

habiliments of time.

107:6.3 (1182.5) Your path to Paradise is the path of spirit attainment, and the Adjuster nature will faithfully unfold the revelation of the spiritual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Beyond the Paradise ascent and in the postfinaliter stages of the eternal career, the Adjuster may possibly contact with the onetime human partner in other than spirit ministry; but the Paradise ascent and the finaliter career are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d-knowing spiritualizing mortal and the spiritual ministry of the God-revealing Adjuster.

107:6.4 (1182.6) We know that Thought Adjusters are spirits, pure spirits, presumably absolute spirits. But the Adjuster must also be something more than exclusive spirit reality. In addition to conjectured mindedness, factors of pure energy are also present. If you will remember that God is the source of pure energy and of pure spirit, it will not be so difficult to perceive that his fragments would be both. It is a fact that the Adjusters traverse space over the instantaneous and universal gravity circuits of the Paradise Isle.

107:6.5 (1182.7) That the Mystery Monitors are thus associated with the material circuit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s indeed puzzling. But it remains a fact that they flash throughout the entire grand universe over the material-gravity circuits.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y may even penetrate the outer space levels; they certainly could follow the gravity presence of Paradise into these regions, and though my order of personality can traverse the mind circuits of the Conjoint Actor also beyond the confines of the grand universe, we have never been sure of detecting the presence of Adjusters in the uncharted regions of outer space.

107:6.6 (1183.1) And yet, while the Adjusters utilize the material-gravity circuits, they are not subject thereto as is material creation. The Adjusters are fragments of the ancestor of gravity, not the consequentials of gravity; they have segmentized on a universe level of existence which is hypothetically antecedent to gravity appearance.

107:6.7 (1183.2) Thought Adjusters have no relaxation from the time of their bestowal until the day of their release to start for Divinington upon the natural death of their mortal subjects. And those whose subjects do not pass through the portals of natural death do not even experience this temporary respite. Thought Adjusters do not require energy intake; they are energy, energy of the highest and most divine order.

7. ADJUSTERS AND PERSONALITY

107:7.1 (1183.3) Though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ies, but they are real entities; they are

재적으로 개인성구현되지는 못하지만 진실로 완전하게 개별존재화 되어 있다. 생각 조절자들은 진정한 개인성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참 실체이며, 우주와 우주들에게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순수한 계층의 실체들이다-그들은 신성한 현존이다. 개인적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 경이로운 단편들은 일반적으로 존재들로 알려져 있으며, 필사자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 영적 위상의 관점에서 때로는 영 실존개체로 언급된다.

만약에 생각 조절자들이 선택의 힘과 의지의 특권을 갖고 있는 개인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필사의 상대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화적인 세상의 이 창조체에 내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마도 우주들의 우주의 어떤 존재도 정확한 대답을 찾은 적은 없을 것이다. 단독 메신저인 나의 개인성 계층도, 개인성이 아닌 실존개체로서의 의지, 선택 그리고 사랑의 자질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선택에서의 모든 전(前)개인적 차원에서 의지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곤 하였다. 그들은 인간 존재에 내주하기를 지원하고, 그들은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적응, 변경 또는 대처하며, 이 활동들은 순수한 의지작용을 암시한다. 그들은 필사자들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으며, 우주의 위기들에 대처하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고도의 의지적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권역과 관계가 없는 모든 상황들에서도, 그들은, 모든 감각에서 의지와 동등한 힘의 행사, 극대화된 결정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의심할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다.

만약에 생각 조절자들이 의지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왜 필사자의 의지에 따라가는가? 리는 그것은 조절자의 의지작용이 본성으로는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현시활동에서는 전(前)개인적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개인성 차원에서 기능하며, 조화우주에 두루 미(未)개인자-비(非)개인적, 하위-개인적, 전(前)개인적 존재-는 실존하는 개인성의 뜻과 활동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창조된 존재들과 비(非)개인적 에너지들의 우주에 두루 우리는 개인성과 분리되어 현시되는 의지, 의지작용, 선택 그리고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조절자들과 또한 그와 유사한 다른 실존개체에서 제외하고는, 미(未)개인적 실체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작용하는 개인성의 이들 속성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없다. 조절자를 하위-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초개인적인 실존개체로써 암시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다만 전(前)개인적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 신(神)의 단편들은 우리 계층들에게 신성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조절자들이 기원적으로 신성하다는 것, 그리고 우주 아버지가 자

truly and perfectly individualized, although they are never, while indwelling mortals, actually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not true personalities; they are *true realities*, realities of the purest order known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 they are the divine presence. Though not personal, these marvelous fragments of the Father are commonly referred to as beings and sometimes, in view of the spiritual phases of their present ministry to mortals, as spirit entities.

107:7.2 (1183.4) If Though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ies having prerogatives of will and powers of choice, how then can they select mortal subjects and volunteer to indwell these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is is a question easy to ask, but probably no being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has ever found the exact answer. Even my order of personality, the Solitary Messengers,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endowment of will, choice, and love in entities that are not personal.

107:7.3 (1183.5) We have often speculated that Thought Adjusters must have volition on all *prepersonal* levels of choice. They volunteer to indwell human beings, they lay plans for man's eternal career, they adapt, modify, and substitut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and these activities connote genuine volition. They have affection for mortals, they function in universe crises, they are always waiting to act decisively in accordance with human choice, and all these are highly volitional reactions. In all situations not concerned with the domain of the human will, they unquestionably exhibit conduct which betokens the exercise of powers in every sense the equivalent of will, maximated decision.

107:7.4 (1183.6) Why then, if Thought Adjusters possess volition, are they subservient to the mortal will? We believe it is because Adjuster volition, though absolute in nature, is *prepersonal* in manifestation. Human will functions on the personality level of universe reality, and throughout the cosmos the impersonal — the nonpersonal, the subpersonal, and the *prepersonal* — is ever responsive to the will and acts of existent personality.

107:7.5 (1183.7) Throughout a universe of created beings and nonpersonal energies we do not observe will, volition, choice, and love manifested apart from personality. Except in the Adjusters and other similar entities we do not witness these attributes of personality functioning in association with impersonal realities. It would not be correct to designate an Adjuster as subpersonal, neither would it be proper to allude to such an entity as superpersonal, but it would be entirely permissible to term such a being *prepersonal*.

107:7.6 (1184.1) To our orders of being these fragments of Deity are known as the divine gifts. We recognize that the Adjusters are divine in

신의 실질적으로 무한한 권역에 두루 그의 파라도이스 아들들의 개인성 안에서 자신의 현존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어떠한 그리고 모든 물질 창조체들과의 직접적이고도 무제한적 교통에 대한 우주 아버지가 마련한, 또는 무한한 영의 개인성들 안에서 자신의 간접적인 사명활동을 통한, 특별보호라는 데에 대한 유력한 증거와 실증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신비 감시자를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는 데 기뻐하지 않을 창조된 존재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종자 운명의 진화하는 의지 창조체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 계층에게도 내주되지 않는다.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origin, and that they constitute the probable proof and demonstration of a reservation by the Universal Father of the possibility of direct and unlimited communication with any and all material creatures throughout his virtually infinite realms, and all of this quite apart from his presence in the personalities of his Paradise Sons or through his indirect ministrations in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107:7.7 (1184.2) There are no created beings that would not delight to be hosts to the Mystery Monitors, but no orders of beings are thus indwelt excepting evolutionary will creatures of finaliter destiny.

107:7.8 (1184.3)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08 편 생각조절자의 임무와 사명활동

⇨ 107

유랜시아 책

10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8 편 생각조절자의 임무와 사명활동

섹션

소개

제 1 장. 선택과 배정

제 2 장. 조절자 내주의 선행 조건

제 3 장. 조직과 관리-행정

제 4 장.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제 5 장. 조절자의 사명임무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PAPER 108

MISSION AND MINISTRY OF
THOUGHT ADJUSTERS

SECTIONS

Introduction

1. Selection and Assignment

2. Prerequisites of Adjuster Indwelling

3.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4. Relation to Other Spiritual Influences

5. The Adjuster's Mission

6. God in Man

소개

조절자들이 인간 종족에게 대하여 갖는 임무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 창조체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선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또한 필사자 마음을 높이고, 사람의 불멸의 혼을 신성한 높이로 그리고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영적 차원들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창조체인 인간 본성을 영원한 최종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그렇게 변환하는 체험에서, 조절자들은 독특한 유형의 존재를 실존으로 탄생시키는데, 이 존재는 다른 어떤 우주 기법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완전한 조절자와 완전해진 창조체의 영원한 연합으로 구성된다.

전체 우주에서, 실존하지 않는 차원들에 대해 체험한 사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한한 하느님은 항상 충만하고 완벽하며, 악과 창조체의 체험을 제외하고 영원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하느님은 잘못할 수가 없다; 하느님은 전혀 실패가 없다. 하느님은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아시지 못한다. 하느님의 선함 지식은 실존적이다. 그

INTRODUCTION

108:0.1 (1185.1) THE mission of the Thought Adjusters to the human races is to represent, to be, the Universal Father to the mortal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hat is the fundamental work of the divine gifts. Their mission is also that of elevating the mortal minds and of translating the immortal souls of men up to the divine heights and spiritual levels of Paradise perfection. And in the experience of thus transforming the human nature of the temporal creature into the divine nature of the eternal finaliter, the Adjusters bring into existence a unique type of being, a being consisting in the eternal union of the perfect Adjuster and the perfected creature which it would be impossible to duplicate by any other universe technique.

108:0.2 (1185.2) Nothing in the entire universe can substitute for the fact of experience on nonexistential levels. The infinite God is, as always, replete and complete, infinitely inclusive of all things except evil and creature experience. God cannot do wrong; he is infallible. God cannot experientially know what he has never personally experienced; God's preknowledge is existential. Therefore does the spirit of the Father descend

러므로 아버지의 영이 유한한 필사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진실한 체험에 동참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실존적인 하느님이 진실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람의 체험적인 아버지가 되는 오직 그러한 방법이다. 영원한 하느님의 무한성은 유한한 체험을 위한 잠재를 포함하며, 이 잠재는 인간 존재들의 삶의 변천하는 체험들을 실제적으로 공유하는 조절자 단편들의 사명활동에서 실제로 되어간다.

제 1 장. 선택과 배정

조절자들이 신성별로부터 필사자의 봉사를 위하여 파견될 때, 그들은 실존적 신성의 자질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과의 가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접촉한 것들에 비례하여 체험적 본질특성에서 다양하다. 우리들도 조절자의 배정의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물들은 내주하는 개인성에 적응하는 데에 영원히 합당한 어떤 지혜롭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서 증여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한다. 우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더 많이 체험한 조절자들은 대개의 경우 인간 마음의 보다 높은 유형 속에 내주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천적인 자질은 선택과 임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각 조절자들이 자원자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기 이전에도, 그들이 내주하기 위한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조상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초안들과 삶의 행위성에서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원형틀들이 신성별의 조절자 예비 무리단에게 지역 우주의 수도에서 안쪽으로 초우주들의 본부로 향하는 반영 기법에 의하여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러한 예측에는 필사의 후보자의 세습되어온 전력들뿐만 아니라 지적 자질과 영적 능력의 유력한 정도를 포함한다. 조절자들은 그렇게 그들이 상세한 본성들을 온전히 알고 있는 마음들에 내주하기를 자원한다.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조절자는 인간 후보자의 세 가지 분별된-자격들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1. 지적 능력. 마음이 정상적인가? 지적 잠재, 지능 능력은 무엇인가? 개별존재가 진정한 의지 창조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 지혜가 기능해 볼 기회가 있겠는가?

2. 영적 지각력. 존경에서 나오는 발전의 가망성, 종교적 본성의 탄생과 성장. 혼의 잠재, 가망성이 있는 영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은 무엇인가?

3. 병합된 지능적 그리고 영적 힘. 인간적 성격의 힘을 산출하고 그리고 생존할 가치가 있는

from Paradise to participate with finite mortals in every bona fide experience of the ascending career; it is only by such a method that the existential God could become in truth and in fact man's experiential Father. The infinity of the eternal God encompasses the potential for finite experience, which indeed becomes actual in the ministry of the Adjuster fragments that actually share the life vicissitude experiences of human beings.

1. SELECTION AND ASSIGNMENT

108:1.1 (1185.3) When Adjusters are dispatched for mortal service from Divinington, they are identical in the endowment of existential divinity, but they vary in experiential qualities proportional to previous contact in and with evolutionary creatures. We cannot explain the basis of Adjuster assignment, but we conjecture that these divine gifts are bestowed in accordance with some wise and efficient policy of eternal fitness of adaptation to the indwelt personality. We do observe that the more experienced Adjuster is often the indweller of the higher type of human mind; human inheritance must therefore be a considerable factor in determining selection and assignment.

108:1.2 (1185.4) Although we do not definitely know, we firmly believe that all Thought Adjusters are volunteers. But before ever they volunteer, they are in possession of full data respecting the candidate for indwelling. The seraphic drafts of ancestry and projected patterns of life conduct are transmitted via Paradise to the reserve corps of Adjusters on Divinington by the reflectivity technique extending inward from the capitals of the local universes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s. This forecast covers not only the hereditary antecedents of the mortal candidate but also the estimate of probable intellectual endowment and spiritual capacity. The Adjusters thus volunteer to indwell minds of whose intimate natures they have been fully apprised.

108:1.3 (1186.1) The volunteering Adjuster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ree qualifications of the human candidate:

108:1.4 (1186.2) 1. *Intellectual capacity.* Is the mind normal? What is the intellectual potential, the intelligence capacity? Can the individual develop into a bona fide will creature? Will wisdom have an opportunity to function?

108:1.5 (1186.3) 2. *Spiritual perception.* The prospects of reverential development, the birth and growth of the religious nature. What is the potential of soul, the probable spiritual capacity of receptivity?

108:1.6 (1186.4) 3. *Combined intellectual and spiritual powers.* The degree to which these two

어떤 불멸의 혼의 확실한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부여된-자질들이 연관되고 병합되는 정도.

이들 여러 사실들을 앞에 놓고 감시자들이 배정을 받으려고 자유롭게 자원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 아마도 하나 이상의 조절자들이 지원을 하는데, 감독하는 개인성구현된 계층의 존재들이 후보가 되는 필사자를 영성화하고 영원화 시키는 임무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자원하는 여러 조절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절자들의 배정과 봉사에 있어서 창조체의 성(性)은 고려되지 않는다.)

조절자는 지원한 순간부터 실제로 보내지기까지의 짧은 기간을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의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조절자를 기다리고 있는 필사 마음의 활동 원형들이 배정된 조절자를 교육하는 데에 사용되며, 개인적인 접근과 마음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마음의 모형은 초우주의 반영 봉사에 의해 공급된 자료들의 조합을 통해서 구성된다. 단독 메신저들의 긴 우주 생애를 통하여, 많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과 접촉함으로써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얻은 결과로, 우리는 적어도 이상과 같이 납득하고 믿고 있다.

조절자들이 일단 신성별로부터 실천적으로 파견되면, 그들이 보내진 순간으로부터 선택된 주체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시간사이에는 실제적으로 시간 차이가 없다. 신성별에서 유란시아까지 조절자의 평균 통과 시간은 117시간 42분 7초이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은 모두 유버사에서 등록에 사용된다.

제 2 장. 조절자 내주의 선행 조건

개인성 예측들이 신성별에 전달되자마자, 봉사를 위하여 조절자들이 자원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인간 주체가 최초의 도덕적 결정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 어린이의 최초 도덕적 선택은 자동적으로 일곱 번째 마음-보조에서 나타나며, 지역 우주의 창조 영을 경유하여, 이 정보를 신성별로 발송하는 초우주를 관할하는 주(主) 영의 현존 안에서, 공동 행위자의 우주 마음-중력 순환회로위에 알려진다. 조절자들은 유란시아의 인간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여섯 살이 되기 바로 전에 도착한다. 현재 세대에게는 5년 10개월 4일이 걸리며, 그것은 지구상의 시간으로 태어난 지 2,134일째이다.

endowments may possibly be associated, combined, so as to produce strength of human character and contribute to the certain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of survival value.

108:1.7 (1186.5) With these facts before them, it is our belief that the Monitors freely volunteer for assignment. Probably more than one Adjuster volunteers; perhaps the supervising personalized orders select from this group of volunteering Adjusters the one best suited to the task of spiritualizing and eternalizing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candidate. (In the assignment and service of the Adjusters the sex of the creature is of no consideration.)

108:1.8 (1186.6) The short time intervening between the volunteering and the actual dispatch of the Adjuster is presumably spent in the Divinington schools of the Personalized Monitors where a working pattern of the waiting mortal mind is utilized in instructing the assigned Adjuster as to the most effective plans for personality approach and mind spiritization. This mind model is formulated through a combination of data supplied by the superuniverse reflectivity service. At least this is our understanding, a belief which we hold as the result of putting together information secured by contact with many Personalized Adjusters throughout the long universe careers of the Solitary Messengers.

108:1.9 (1186.7) When once the Adjusters are actually dispatched from Divinington, practically no time intervenes between that moment and the hour of their appearance in the minds of their chosen subjects. The average transit time of an Adjuster from Divinington to Urantia is 117 hours, 42 minutes, and 7 seconds. Virtually all of this time is occupied with registration on Uversa.

2. PREREQUISITES OF ADJUSTER INDWELLING

108:2.1 (1186.8) Though the Adjusters volunteer for service as soon as the personality forecasts have been relayed to Divinington, they are not actually assigned until the human subjects make their first moral personality decision. The first moral choice of the human child is automatically indicated in the seventh mind-adjutant and registers instantly, by way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over the universal mind-gravity circuit of the Conjoint Actor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Spirit of superuniverse jurisdiction, who forthwith dispatches this intelligence to Divinington. Adjusters reach their human subjects on Urantia, on the average, just prior to the sixth birthday. In the present generation it is running five years, ten months, and four days; that is, on the 2,134th day of terrestrial life.

조절자는 보조 마음-영들의 내주하는 봉사로서 적절히 준비되고 성령 안에서 회로연결이 될 때까지 필사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 마음이 조절자를 받아들이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일곱 보조자들의 조화-협동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창조체의 마음은 경배하는 태도를 내어뻘쳐야 하며, -도덕적 선택-선과 악의 출현하는 가치들 중에서 선택의 능력을 보임에 따른 지혜 기능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간 마음 상태는 조절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진리의 영이 이들 서로 다른 영적 사명활동들의 조화-협동자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세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마음에 내주하려고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만일에 이 증여 아들들의 영이 제시되어 있으면, 일곱 번째 보조 마음-영이 기능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필사의 지능에 대하여 앞서서 사명활동 해왔던 연관된 여섯 보조자의 조화-협동이 잠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신호를 우주 어머니 영에게 보내는 즉시 조절자들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신성한 조절자들은 오순절 이후로 유란시아의 도덕적 지위의 모든 정상적인 마음들에 보편적으로 증여되었다.

진리의 영이 자질로서 부여된 마음이라도, 도덕적 결정의 출현이 있기 전에는 조절자들이 독단적으로 필사자 지성에 침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도덕적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 영 조절자는 신성별로부터의 직접적인 관할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신성한 조절자와 그들의 인간 주체 사이에서 가능하고 있는, 그 어떠한 중재자나 또는 간섭하는 다른 권한이나 힘은 없다; 하느님과 사람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진화하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부여되기 전의 시대에는, 조절자들의 증여가 많은 영의 영향들과 개인성 태도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증여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며, 그러한 진화하는 마음들 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한 조절자들에 대한 허가를 무엇이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주어지기 전에 그 마음들 속에 조절자들이 도착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많은 영향들과 조건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의 배정. 만일 필사자에게 아직까지 조절자가 내주한 적이 없었다면,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배정됨과 동시에 조절자가 바로 온다. 조절자들의 사명활동과 개인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 사이에는 아주 확실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2. 지적 성취와 영 달성의 세 번째 순환계의 달성. 나는 그러한 일들과 관련된 지역우주 개인성들에게 그 같은 완수가 알려지기 이전에 세 번

108:2.2 (1187.1) The Adjusters cannot invade the mortal mind until it has been duly prepared by the indwelling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nd encircled in the Holy Spirit. And it requires the co-ordinate function of all seven adjutants to thus qualify the human mind for the reception of an Adjuster. Creature mind must exhibit the worship outreach and indicate wisdom function by exhibiting the ability to choose between the emerging values of good and evil — moral choice.

108:2.3 (1187.2) Thus is the stage of the human mind set for the reception of Adjusters, but as a general rule they do not immediately appear to indwell such minds except on those worlds where the Spirit of Truth is functioning as a spiritual co-ordinator of these different spirit ministries. If this spirit of the bestowal Sons is present, the Adjusters unfailingly come the instant the seventh adjutant mind-spirit begins to function and signalizes to the Universe Mother Spirit that it has achieved in potential the co-ordination of the associated six adjutants of prior ministry to such a mortal intellect. Therefore have the divine Adjusters been universally bestowed upon all normal minds of moral status on Urantia ev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108:2.4 (1187.3) Even with a Spirit of Truth endowed mind, the Adjusters cannot arbitrarily invade the mortal intellect prior to the appearance of moral decision. But when such a moral decision has been made, this spirit helper assumes jurisdiction direct from Divinington. There are no intermediaries or other intervening authorities or powers functioning between the divine Adjusters and their human subjects; God and man are directly related.

108:2.5 (1187.4) Before the times of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the inhabitants of an evolutionary world, the Adjusters' bestowal appears to be determined by many spirit influences and personality attitudes. We do not fully comprehend the laws governing such bestowals; we do not understand just what determines the release of the Adjusters who have volunteered to indwell such evolving minds. But we do observe numerous influences and conditions which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the arrival of the Adjusters in such minds prior to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and they are:

108:2.6 (1187.5) 1. The assignment of personal seraphic guardians. If a mortal has not been previously indwelt by an Adjuster, the assignment of a personal guardian brings the Adjuster forthwith. There exists some very definite but unknown rel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Adjusters and the ministry of personal seraphic guardians.

108:2.7 (1187.6) 2. The attainment of the third circle of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spiritual attainment. I have observed Adjusters arrive in mortal minds

째 순환회로를 획득함에 따라서 필사자 마음 안에 조절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아왔다.

3. 특별한 영적 의미의 최극 결정에 따라서. 개인적 행성위기에서 그러한 인간의 행동은 대기 하던 조절자의 즉각적인 도착이 따른다.

4. 형제신분의 영. 정신적 순환계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수호자들이 배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위기 결정과 비슷한 것이 없는 경우에—진화하는 필사자가 동료들 사랑하는 일에 사로잡히고 육신으로의 그의 형제들에게 사심 없는 사명활동에 몰두하게 되면, 기다리던 조절자는 그러한 필사 사명활동자의 마음에 내주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내려온다.

5.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의지의 선언. 우리는 공간 세계들의 많은 필사자들이 조절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나, 아직 감시자가 나타나지 않은 많은 경우를 본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체들이 하루하루를 살며, 이제 곧 그들은 조용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생각 조절자가 즉각적으로 파견되는 것을 목격한다.

6. 최극존재의 영향. 필사 거주자들의 진화하는 혼과 조절자가 융합하지 않는 세계들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에 의하여 조절자들이 증여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러한 증여가 최극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조화우주 반영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조절자들이 진화하는 필사자 마음들의 이들 일정 유형들과는 왜 융합할 수 없으며 또 융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upon the conquest of the third circle even before such an accomplishment could be signaled to the local universe personalities concerned with such matters.

108:2.8 (1187.7) 3. Upon the making of a supreme decision of unusual spiritual import. Such human behavior in a personal planetary crisis usually is attended by the immediate arrival of the waiting Adjuster.

108:2.9 (1187.8) 4. The spirit of brotherhood. Regardless of the attainment of the psychic circles and the assignment of personal guardians — in the absence of anything resembling a crisis decision — when an evolving mortal becomes dominated by the love of his fellows and consecrated to unselfish ministry to his brethren in the flesh, the waiting Adjuster unvaryingly descends to indwell the mind of such a mortal minister.

108:2.10 (1188.1) 5. Declaration of intention to do the will of God. We observe that many mortals on the worlds of space may be apparently in readiness to receive Adjusters, and yet the Monitors do not appear. We go on watching such creatures as they live from day to day, and presently they quietly, almost unconsciously, arrive at the decision to begin the pursuit of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then we observe the immediate dispatch of the Thought Adjusters.

108:2.11 (1188.2) 6. Influence of the Supreme Being. On worlds where the Adjusters do not fuse with the evolving souls of the mortal inhabitants, we observe Adjusters sometimes bestowed in response to influences which are wholly beyond our comprehension. We conjecture that such bestowals are determined by some cosmic reflex action originating in the Supreme Being. As to why these Adjusters can not or do not fuse with these certain types of evolving mortal minds we do not know. Such transactions have never been revealed to us.

제 3 장. 조직과 관리-행정

우리가 아는 한, 조절자들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독립적인 작업 단위로 조직되며, 신성별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일곱 개의 초우주들에 두루 한결같으며, 모든 지역우주들은 신비 감시자들의 동일한 유형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관찰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연속을 이루는 조절자들이 인종들을 통하여 두루, 여러 섭리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세계와 체계와 우주로 확장되는 그러한 연속적인 조직을 포함하면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성한 선물들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기는, 그들이 대우주에 두루 상호교체하면서 기능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다.

3.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08:3.1 (1188.3) As far as we know, Adjusters are organized as an independent working unit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re apparently administered directly from Divinington. They are uniform throughout the seven superuniverses, all local universes being served by identical types of Mystery Monitors. We do know from observation that there are numerous series of Adjusters involving a serial organization that extends through races, over dispensations, and to worlds, systems, and universes. It is, however, exceedingly difficult to keep track of these divine gifts since they function interchangeabl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조절자들은 일곱 개의 초우주들에 있는 본부들에서만(신성별의 바깥쪽에서는) 완벽한 기록이 되어 있다. 각각의 상승하는 창조체에 내주하는 각 조절자의 번호와 계층은 파라다이스 당국에 의하여 초우주의 본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관련된 지역우주와 교통되고 관계가 있는 특정 행성에 전달된다. 그러나 지역우주의 기록들은 생각 조절자들의 모든 숫자를 밝히지 못한다; 네바돈의 기록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대리자들에 의해 임명되어 지역우주에 배정된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조절자들의 완성된 숫자의 실제 의의(意義)는 오직 신성별에만 알려져 있다.

인간 상대자들은 종종 그들의 조절자들의 번호에 의해 알려진다; 필사자들은 조절자와 융합될 때까지 실제 우주 이름을 받지 못하며, 새롭게 된 창조체에게 새로운 이름이 운명 수호자에 의해 수여됨으로써 이 연합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우리들이 오르본톤에 생각 조절자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그 기록에 대하여 또는 행정-관리적 관계에 대하여 전혀 권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역우주들의 각각의 세계들과 신성별에 있는 신성한 선물들의 중앙 거점 사이에는 매우 가까운 행정-관리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중여 파라다이스 아들의 출현이 있는 다음, 진화세계에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행성의 조절자들의 감독자로서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다.

우주 검열자들이 행성에서의 조사를 수행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세라핌천사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세계의 관리-행정에 파견된 존재들의 다른 계층들의 우두머리들에게 훈령을 전달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항상 생각 조절자들의 행성 우두머리에게 자신들의 인사를 표하는 것을 주목해 보는 것은 흥미롭다. 얼마 전에, 유란시아는 네바돈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실험의 행성들의 다스리는 감독자인 타바만시아에 의해 정기 검열을 받았다. 그리고 기록들이 밝히는 것을 보면, 초인간 개인성들의 여러 우두머리들에게 경고와 고발들을 전달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그는 조절자들의 우두머리에게도 역시 다음과 같은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우리는 조절자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행성인지, 구원자별인지, 유버사인지 혹은 신성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보다 훨씬 위의 상급자인 당신들에게, 나는 체험적 행성 계열들 위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비정상적인 구체에서 봉사하기를 자원해 온 이들 훌륭한 무리의 천상의 사명활동자들, 곧 신비 감시자들에게 찬미와 깊은 존중을 표하려고 나옵니다. 위기들이 얼마나 시련을 주던지 간에. 당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바돈의

108:3.2 (1188.4) Adjusters are of complete record (outside of Divinington) only on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 superuniverses. The number and order of each Adjuster indwelling each ascending creature are reported out by the Paradise authorities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from there are communicat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concerned and relayed to the particular planet involved. But the local universe records do not disclose the full number of the Thought Adjusters; the Nebadon records contain only the local universe assignment number as designated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Adjuster's complete number is known only on Divinington.

108:3.3 (1188.5) Human subjects are often known by the numbers of their Adjusters; mortals do not receive real universe names until after Adjuster fusion, which union is signalized by the bestowal of the new name upon the new creature by the destiny guardian.

108:3.4 (1188.6) Though we have the records of Thought Adjusters in Orvonton, and though we have absolutely no authority over them or administrative connection with them, we firmly believe that there is a very close administrative connection between the individual worlds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central lodgment of the divine gifts on Divinington. We do know that, following the appearance of a Paradise bestowal Son, an evolutionary world has a Personalized Adjuster assigned to it as the planetary supervisor of Adjusters.

108:3.5 (1189.1)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local universe inspectors always address themselves, when carrying out a planetary examination, to the planetary chief of Thought Adjusters, just as they deliver charges to the chiefs of seraphim and to the leaders of other orders of beings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 of an evolving world. Not long since, Urantia underwent such a periodic inspection by Tabamantia, the sovereign supervisor of all life-experiment planets in the universe of Nebadon. And the records reveal that, in addition to his admonitions and indictments delivered to the various chiefs of superhuman personalities, he also delivered the following acknowledgment to the chief of Adjusters, whether located on the planet, on Salvington, Uversa, or Divinington, we do not definitely know, but he said:

108:3.6 (1189.2) “Now to you, superiors far above me, I come as one placed in temporary authority over the experimental planetary series; and I come to express admiration and profound respect for this magnificent group of celestial ministers, the Mystery Monitors, who have volunteered to serve on this irregular sphere. No matter how trying the crises, you never falter. Not on the records of

기록에서나 혹은 오르본톤의 위원회 앞에서도 신성한 조절자에 대한 고발이 제시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신뢰에 진실하였으며, 당신들은 신성하게 신실해 왔습니다. 당신들은 이 혼란스런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존재들의 오류들을 조절하고 결점들을 보충하도록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당신들은 경이로운 존재들이며, 이 뒤쳐진 권역의 혼들 안에 있는 선(善)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외견상으로 자원하는 사명활동자로서 얼마동안 나의 관할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들에게 존중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지극한 사심-없음과 당신들의 남득하는 사명활동, 그리고 당신들의 공명정대한 헌신들에 대한 나의 보잘 것 없는 인식 안에서도 나는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이 투쟁이 난무하며, 비탄에 잠기고, 병으로 시달리는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하느님과-같은의 봉사자라는 이름이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당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증거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들에서,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믿으며, 신성별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 어떤 매우 멀리 있는 중심 근원으로부터, 이들 신성한 선물들의 매우 지적이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관리-행정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이 신성별로부터 세상으로 온다는 것과 그들의 상대자가 죽음에 따라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다 높은 영 계층들 중에서 그 관리-행정의 기능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성들의 나의 계층은 널리 퍼진 우주의 상호관련자로서 연합하여 기능하는 많은 다른 개인적 그리고 미(未)개인적 하위-신(神) 집단들과 무의식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들이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의 여러 계층들의 현존을 균일하게 인식하는 유일한 개인성구현된 창조체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추측한다.

우리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전(前)개인적 신(神)의 단편인, 조절자들의 현존을 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초개인적 표현들인,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현존을 감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계시되지 않은 계층들의 영 현존을 반드시 감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실존개체들에게까지 전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단독 메신저들이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확장되는 신(神) 안에 등록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조화-협동하는 개인성라고 가르친다. 우리들이 시간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현상들의 체험적 통일안에서 동참하는 자 일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능들을 의식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

Nebadon nor before the commissions of Orvonton has there ever been offered an indictment of a divine Adjuster. You have been true to your trusts; you have been divinely faithful. You have helped to adjust the mistakes and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all who labor on this confused planet. You are marvelous beings, guardians of the good in the souls of this backward realm. I pay you respect even while you are apparently under my jurisdiction as volunteer ministers. I bow before you in humble recognition of your exquisite unselfishness, your understanding ministry, and your impartial devotion. You deserve the name of the Godlike servers of the mortal inhabitants of this strife-torn, grief-stricken, and disease-afflicted world. I honor you! I all but worship you!"

108:3.7 (1189.3) As a result of many suggestive lines of evidence, we believe that the Adjusters are thoroughly organized, that there exists a profoundly intelligent and efficient directive administration of these divine gifts from some far-distant and central source, probably Divinington. We know that they come from Divinington to the worlds, and undoubtedly they return thereto upon the deaths of their subjects.

108:3.8 (1189.4) Among the higher spirit orders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discover the mechanisms of administration. My order of personalities, while engaged in the prosecution of our specific duties, is undoubtedly unconsciously participating with numerous other personal and impersonal sub-Deity groups who unitedly are functioning as far-flung universe correlators. We suspect that we are thus serving because we are the only group of personalized creatures (aside from Personalized Adjusters) who are uniformly conscious of the presence of numerous orders of the prepersonal entities.

108:3.9 (1189.5) We are aware of the presence of the Adjusters, who are fragments of the prepersonal De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sense the presence of the Inspired Trinity Spirits, who are superpersonal expressions of the Paradise Trinity. We likewise unfailingly detect the spirit presence of certain unrevealed orders springing from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nd we are not wholly unresponsive to still other entities unrevealed to you.

108:3.10 (1190.1) The Melchizedeks of Nebadon teach that the Solitary Messengers are the personality co-ordinators of these various influences as they register in the expanding Deity of the evolutionary Supreme Being. It is very possible that we may be participants in the experiential unification of many of the unexplained phenomena of time, but we are not consciously certain of thus functioning.

제 4 장.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다른 신(神)의 단편들과 조화-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구체안에서 매우 고독하다. 신비 감시자들은, 비록 아버지가 대우주 전체에 걸친 모든 개인적 힘과 권한의 행사를 명백히 양도하셨고, 이 포기의 행동이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최극 창조자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아버지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 중력과 조화-협동하여 그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가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마음과 혼속에 제시되어 있는 도전할 수 없는 권리를 그 자신에게 확실히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 한다.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이 아직 유란시아에 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림을 받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낼 것이다.”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들의 창조적 동반자들의 이 이끌어 내는 영적 힘을 우리는 인지하며 납득하지만, 인간 마음속에서 살며 그토록 힘차게 활동하는 신비 감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 그 방법들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이들 신비스러운 현존들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우주들의 우주의 일에 종속되거나, 조화-협동하거나. 명확하게 관련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내주하고 있는 창조체들을 신성한 이상 쪽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며, 그들의 미래의 그리고 더욱 나은 일생의 목적과 목표 쪽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항상 유혹한다. 이 신비한 감시자들은 미가엘이 네바돈의 우주에 두루 영적 통치권의 확립을 끊임없이 도우면서, 오르본톤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주권의 안정화에 신비롭게 기여한다. 조절자들은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최극 창조자 자녀들도 그러한 같은 뜻을 개인적으로 체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자들의 활동과 우주 통치자들의 주권이 상호간에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비록 외견상 연결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조절자들에서의 아버지 현존과 네바돈의 미가엘에서의 아버지 주권은 같은 신성의 다양한 현시활동들임에는 틀림없다.

생각 조절자들은 다른 어떤 영적 현존들과 매우 독립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다른 모든 영적 영향들의 이행을 통제하며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아주 동떨어진 우주 법칙과 일치되게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외견상의 독립에 상관없이, 오랜 동안의 관찰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인간 마음에서 다른 영 사명활동들과의 완전한 동조와 조화-협동으로 기능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마음-영들, 성령, 진리의 영, 그리고 다른 영향들이 포함된다.

4. RELATION TO OTHER SPIRITUAL INFLUENCES

108:4.1 (1190.2) Apart from possible co-ordination with other Deity fragments, the Adjusters are quite alone in their sphere of activity in the mortal mind. The Mystery Monitors eloquently bespeak the fact that, though the Father may have apparently resigned the exercise of all direct personal power and authority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notwithstanding this act of abnegation in behalf of the Supreme Creator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Father has certainly reserved to himself the unchallengeable right to be present in the minds and souls of his evolving creatures to the end that he may so act as to draw all creature creation to himself, co-ordinately with the spiritual gravity of the Paradise Sons. Said your Paradise bestowal Son when yet on Urantia, “I, if I am lifted up, will draw all men.” This spiritual drawing power of the Paradise Sons and their creative associates we recognize and understand, but we do not so fully comprehend the methods of the all-wise Father’s functioning in and through these Mystery Monitors that live and work so valiantly within the human mind.

108:4.2 (1190.3) While not subordinate to, co-ordinate with, or apparently related to, the work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ough acting independently in the minds of the children of men, unceasingly do these mysterious presences urge the creatures of their indwelling toward divine ideals, always luring them upward toward the purposes and aims of a future and better life. These Mystery Monitors are continually assis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dominion of Michael throughout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mysteriously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Ancients of Days in Orvonton. The Adjusters are the will of God, and since the Supreme Creator children of God also personally embody that same will, it is inevitable that the actions of Adjusters and the sovereignty of the universe rulers should be mutually interdependent. Though apparently unconnected, the Father presence of the Adjusters and the Father sovereignty of Michael of Nebadon must be diverse manifestations of the same divinity.

108:4.3 (1190.4) Thought Adjusters appear to come and go quite independent of any and all other spiritual presences; they se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universe laws quite apart from those which govern and control the performances of all other spirit influences. But regardless of such apparent independence, long-range observation unquestionably discloses that they function in the human mind in perfect synchrony and co-ordination with all other spirit ministries, including

한 세계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될 때, 한 행성이 외부로부터 순환되는 통신의 통로가 차단될 때, 칼리가스티아 반란 이후의 유란시아처럼, 개인성 메신저들 외에는 오직 하나의 직접적인 행성간 또는 우주 통신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구체의 조절자들의 연락을 통해서이다. 우주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조절자들이 직접 관련된 적은 없었다. 행성의 고립이 조절자들과 그들이 지역우주, 초우주 또는 중앙우주의 어느 부분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명 예비 무리단들의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과 최극자와의 접촉들이 고립된 세계 속에서도 그토록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기법을 행성 고립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근래에 들어서 천사장들의 회로가 유란시아에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그 통신의 수단은 천사장 무리단 자체의 활동행위에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우주 내의 많은 영적 현상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관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정통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이 불가사의한 일들의 대부분이 중력 메신저들과 특별한 유형의 신비 감시자들에 의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 나는 조절자들이 오로지 필사자 마음을 다시-만드는 일에만 헌신한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개인성구현된 감시자들과 계시되지 않은 전(前)개인적 영들의 다른 계층들이 우주 아버지의 영역 창조체들과의 설명되지 않은 직접적인 접촉을 대표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제 5 장. 조절자의 사명임무

조절자들은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존재에 내주하기를 자원하면서 그들은 힘든 배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그들은 너희 마음에서 존재한다는 과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영역의 영적 지능에서 오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영적 메시지들을 물질적 마음에 다시 받게 하거나 또는 전환해주는 일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로 상승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각 조절자가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 그가 지금도 그가 충분한 정도의 협력에서 창조체의 무능이나, 실패로 인하여 인간 주체의 체형 속에 등록하는 데 실패된 그러한 항목들을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와 뗃어진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은, 그가 실존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실히 보존할 것이다.

adjutant mind-spirits, Holy Spirit, Spirit of Truth, and other influences.

108:4.4 (1190.5) When a world is isolated by rebellion, when a planet is cut off from all outside encircuited communication, as was Urantia after the Caligastia upheaval, aside from personal messengers there remains but one possibility of direct interplanetary or universe communication, and that is through the liaison of the Adjusters of the spheres. No matter what happens on a world or in a universe, the Adjusters are never directly concerned. The isolation of a planet in no way affects the Adjusters and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ny part of the local universe, superuniverse, or the central universe. And this is the reason why contacts with the supreme and the self-acting Adjusters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are so frequently made on quarantined worlds. Recourse is had to such a technique as a means of circumventing the handicaps of planetary isolation. In recent years the archangels' circuit has functioned on Urantia, but that means of communication is largely limited to the transactions of the archangel corps itself.

108:4.5 (1191.1) We are cognizant of many spirit phenomena in the far-flung universe which we are at a loss fully to understand. We are not yet masters of all that is transpiring about us; and I believe that much of this inscrutable work is wrought by the Gravity Messengers and certain types of Mystery Monitors. I do not believe that Adjusters are devoted solely to the remaking of mortal minds. I am persuaded that the Personalized Monitors and other orders of unrevealed prepersonal spirits are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al Father's direct and unexplained contact with the creatures of the realms.

5. THE ADJUSTER'S MISSION

108:5.1 (1191.2) The Adjusters accept a difficult assignment when they volunteer to indwell such composite beings as live on Urantia. But they have assumed the task of existing in your minds, there to receive the admonitions of the spiritual intelligences of the realms and then to undertake to redictate or translate these spiritual messages to the material mind; they are indispensable to the Paradise ascension.

108:5.2 (1191.3) What the Thought Adjuster cannot utilize in your present life, those truths which he cannot successfully transmit to the man of his betrothal, he will faithfully preserve for use in the next stage of existence, just as he now carries over from circle to circle those items which he fails to register in the experience of the human subject, owing to the creature's inability, or failure, to give a sufficient degree of co-operation.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조절자들이 돌보는 일에서 생기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들 영 조력자들이 불이행한 것을 본적이 없다. 아들들의 지역우주 유형들을 포함하여, 천사들과 다른 높은 유형의 영 존재들이 악을 포용하고, 때로는 신성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조절자들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일곱 개의 집단에게도 똑같이 사실이다.

너희에게 있는 조절자는 너희를 새로운 다음 실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존재이며, 하느님과 영원한 자녀관계를 이루도록 미리 증여한 존재이다. 너희 의지의 동의와 함께 그리고 그 동의에 의해, 조절자는 물질적 마음의 창조체 성향을 창발하는 모론시아 혼의 목적과 동기의 변환되는 행동으로 종속시키는 힘을 가진다.

신비 감시자들은 생각 조력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 조절자이다. 그들은 조절과 영성화로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마음 그리고 너희 미래 생애의 새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적 마음과 함께 노력한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미래의 삶에 대한 것이지, 지금의 삶이 아니다. 그들은 땅에서의 조력자가 아니라, 천상의 조력자로 불린다. 그들은 필사의 생애를 편안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너희의 삶을 합당한 정도로 어렵고 괴롭게 하여 결심들이 자극되고 증가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위대한 생각 조절자의 현존은 편안한 삶을 제공하거나 격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신성한 선물은 심오한 마음의 평화와 뛰어난 영의 평온을 제공한다.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너희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은 주로 내부의 심리적인 상황과 외부의 물질 환경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반응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위로와 필사의 안위를 위하여 조절자를 믿으려 하지 마라. 조절자가 하는 일은 너희의 영원한 모험을 준비하고 너희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너희의 형클어진 감정을 가라앉히고 또는 너희의 상한 자부심을 위해 사명활동하는 것이 신비 감시자의 임무가 아니다; 조절자가 시간을 쏟고 관심이 끌려있는 것은 상승의 생애를 위하여 너희 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조절자들이 너희 마음과 혼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성한 감시자와 인간 마음의 조화우주 결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것은 계획이나 목적에서가 아니라 성취의 실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비한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천상의 선물들에 대하여 적당한 이름을 찾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108:5.3 (1191.4) One thing you can depend upon: The Adjusters will never lose anything committed to their care; never have we known these spirit helpers to default. Angels and other high types of spirit beings, not excepting the local universe type of Sons, may occasionally embrace evil, may sometimes depart from the divine way, but Adjusters never falter. They are absolutely dependable, and this is equally true of all seven groups.

108:5.4 (1191.5) Your Adjuster is the potential of your new and next order of existence, the advance bestowal of your eternal sonship with God. By and with the consent of your will, the Adjuster has the power to subject the creature trends of the material mind to the transforming actions of the motivations and purposes of the emerging morontial soul.

108:5.5 (1191.6) The Mystery Monitors are not thought helpers; they are thought adjusters. They labor with the material min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by adjustment and spiritualization, a new mind for the new worlds and the new name of your future career. Their mission chiefly concerns the future life, not this life. They are called heavenly helpers, not earthly helpers. They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the mortal career easy; rather are they concerned in making your life reasonably difficult and rugged, so that decisions will be stimulated and multiplied. The presence of a great Thought Adjuster does not bestow ease of living and freedom from strenuous thinking, but such a divine gift should confer a sublime peace of mind and a superb tranquillity of spirit.

108:5.6 (1192.1) Your transient and ever-changing emotions of joy and sorrow are in the main purely human and material reactions to your internal psychic climate and to your external material environment. Do not, therefore, look to the Adjuster for selfish consolation and mortal comfort. It is the business of the Adjuster to prepare you for the eternal adventure, to assure your survival. It is not the mission of the Mystery Monitor to smooth your ruffled feelings or to minister to your injured pride; it is the preparation of your soul for the long ascending career that engages the attention and occupies the time of the Adjuster.

108:5.7 (1192.2) I doubt that I am able to explain to you just what the Adjusters do in your minds and for your souls. I do not know that I am fully cognizant of what is really going on in the cosmic association of a divine Monitor and a human mind. It is all somewhat of a mystery to us, not as to the plan and purpose but as to the actual mode of accomplishment. And this is just why we are confronted with such difficulty in finding an appropriate name for these supernal gifts to mortal men.

생각 조절자들은 너희 두려움의 느낌들을 사랑과 자신감에서의 확신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기계장치처럼 또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너희의 임무이다. 두려움의 멍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해 내는 그 결정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희는 정말로 정신적 지레받침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뒤이어 조절자가 들어 올리는 영적 지렛대와 앞으로 나아가는 밝은 빛을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정말로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단지 너희가 옳다고 부르거나 그르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종들 간의 비교적 높은 성향과 낮은 성향 사이에 있는 갈등들이 날카롭게 잘 파악될 때, 조절자가 그러한 체험들 속에 어떤 결정적이고 활동적인 방법으로 항상 참여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조절자의 그러한 활동이 상대되는 인간에게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 그 가치와 실체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만일 네가 개인적인 운명의 수호자를 가지고 생존에 실패한다면, 그 수호천사는 그의 책임을 신실히 이행했다는 해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생각 조절자들은 그들의 상대자가 살아남지 못하여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사명활동의 완전성에 천사들은 미진할 수 있는 반면에, 생각 조절자들은 파라다이스 완전성의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명활동은 신성별 밖의 어떤 존재에 의한 비평의 가능성도 넘어서는 완벽한 기법으로 특징지어진다. 너희는 완전한 인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성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제 6 장.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고귀하며 완전한 조절자들이 유란시아의 필사자들과 같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마음속에 실제적 실존으로서 자신을 제공하고, 실제로 땅에 있는 동물기원의 존재들과 보호관찰의 연합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경양의 경이로움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거주자들의 이전 상태에 관계없이, 신성한 아들의 증여에 이어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진리의 영이 수여된 이후에, 조절자들이 모든 정상적인 의지 창조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세상에 왔다.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임무가 완수됨에 따라서, 이 감시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이루었다. 신성한 선물들의 증여를 통하여 아버지는 죄와 악에 가능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조절자는 인간적인 불의의 바로 그 와중에서도 필사자의 마음에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특히 순전한 탐욕과 이기심에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들은 아름답고 신성한 것에 대한 불경함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물적

108:5.8 (1192.3) The Thought Adjusters would like to change your feelings of fear to convictions of love and confidence; but they cannot mechanically and arbitrarily do such things; that is your task. In executing those decisions which deliver you from the fetters of fear, you literally supply the psychic fulcrum on which the Adjuster may subsequently apply a spiritual lever of uplifting and advancing illumination.

108:5.9 (1192.4) When it comes to the sharp and well-defined conflicts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tendencies of the races, between what *really* is right or wrong (not merely what you may call right and wrong), you can depend upon it that the Adjuster will always participate in some definite and active manner in such experiences. The fact that such Adjuster activity may be unconscious to the human partner does not in the least detract from its value and reality.

108:5.10 (1192.5) If you have a personal guardian of destiny and should fail of survival, that guardian angel must be adjudicated in order to receive vindication as to the faithful execution of her trust. But Thought Adjusters are not thus subjected to examination when their subjects fail to survive. We all know that, while an angel might possibly fall short of the perfection of ministry, Thought Adjusters work in the manner of Paradise perfection; their ministry is characterized by a flawless technique which is beyond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by any being outside of Divinington. You have perfect guides; therefore is the goal of perfection certainly attainable.

6. GOD IN MAN

108:6.1 (1192.6) It is indeed a marvel of divine condescension for the exalted and perfect Adjusters to offer themselves for actual existence in the minds of material creatures, such as the mortals of Urantia, really to consummate a probationary union with the animal-origin beings of earth.

108:6.2 (1193.1) No matter what the previous status of the inhabitants of a world, subsequent to the bestowal of a divine Son and after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humans, the Adjusters flock to such a world to indwell the minds of all normal will creatur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mission of a Paradise bestowal Son, these Monitors truly become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Through the bestowal of the divine gifts the Father makes the closest possible approach to sin and evil, for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Adjuster must coexist in the mortal mind even in the very midst of human unrighteousness. The indwelling Adjusters are particularly tormented by those thoughts which are purely sordid and selfish; they are distressed by irreverence for that which is

인 두려움과 어린아이 같은 갈망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궤방을 받는다.

신비 감시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자, 우주에 널리 펼쳐진 하느님 형상의 반영이다. 위대한 선생은 한때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진리의 완성 안에서 그리고 정의로움 안에서 창조되어, 하느님과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조절자는 신성의 표식이며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닮았다거나 물질적 창조체 자질의 에워싸여진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창조체들 위에 생각 조절자의 천상의 증여로서 우주 아버지가 내린 영 현존의 선물을 가리킨다.

조절자는 너희 안에서 신성한 성격의 희망과 영적 달성을 이루는 샘이다. 그는, 너희를 단순한 동물적 창조체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구별시켜 주는 힘이며, 특권이며. 그리고 생존의 가능성이다. 그는 외적인 그리고 육체적 충동에 견주어, 더욱 높고 그리고 생각의 참된 내적인 영적 충동이며, 그것은 물질적인 육신의 신경계통을 넘어서 마음에 도달한다.

이들 미래 생애의 신실한 보호관리자들은 반드시 모든 정신적 창조를 영적 상대자와 함께 똑 같은 것을 만들어둔다; 그렇게 그들은 너희가 실제로 생존의 세계 속에서 부활되기 위하여(오직 영적으로) 너희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재창조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절묘한 영 재(再)-창조계는 너희의 진화하는 그리고 불멸인 혼으로 창발하는 실체, 너희의 모론시아 자아 속에 보존되어 있다. 이 실체들은 비록 조절자가 의식의 빛으로 그들이 내보여지도록 이들 복제된 창조체들을 충분하게 드높이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 부모인 것처럼, 조절자도 실제 너희, 너희의 더욱 높은 그리고 전진하는 자아, 너희의 더욱 좋은 모론시아 그리고 미래의 영적 자아의 신성한 부모이다. 그들이 너희의 생존을 결정하고 너희를 새로운 세계와 하느님, 조절자-너희의 신실하신 동반자와 영원한 관계로서 끝이 없는 실존으로 올려 보낼 때 심판자들과 검열관들이 식별하는 것은 이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조절자들은 너희 진화하는 불멸의 혼들에게 영원한 조상이 되며, 신성한 기원이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실존을 영적이며 미래적인 생애에 비추어서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게 인도한다. 감시자들은 죽지 않는 희망 속에 사로잡힌 자들, 영속하는 발전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상대자들과 다소간의 직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상징들이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나누어 줄 때 그리고 그들의 계시들을 인간

beautiful and divine, and they are virtually thwarted in their work by many of man's foolish animal fears and childish anxieties.

108:6.3 (1193.2) The Mystery Monitors are undoubtedly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reflection of the image of God abroad in the universe. A great teacher once admonished men that they shoul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their minds; that they become new men who, like God, are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in the completion of truth. The Adjuster is the mark of divinity, the presence of God. The “image of God” does not refer to physical likeness nor to the circumscribed limitations of material creature endowment but rather to the gift of the spirit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 supernal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upon the humble creatures of the universes.

108:6.4 (1193.3) The Adjuster is the wellspring of spiritual attainment and the hope of divine character within you. He is the power, privilege, and the possibility of survival, which so fully and forever distinguishes you from mere animal creatures. He is the higher and truly internal spiritual stimulus of thought in contrast with the external and physical stimulus, which reaches the mind over the nerve-energy mechanism of the material body.

108:6.5 (1193.4) These faithful custodians of the future career unfaithfully duplicate every mental creation with a spiritual counterpart; they are thus slowly and surely re-creating you as you really are (only spiritually) for resurrection on the survival worlds. And all of these exquisite spirit re-creations are being preserved in the emerging reality of your evolving and immortal soul, your morontia self. These realities are actually there, notwithstanding that the Adjuster is seldom able to exalt these duplicate creations sufficiently to exhibit them to the light of consciousness.

108:6.6 (1193.5) And as you are the human parent, so is the Adjuster the divine parent of the real you, your higher and advancing self, your better morontial and future spiritual self. And it is this evolving morontial soul that the judges and censors discern when they decree your survival and pass you upward to new worlds and never-ending existence in eternal liaison with your faithful partner — God, the Adjuster.

108:6.7 (1193.6) The Adjusters are the eternal ancestors, the divine originals, of your evolving immortal souls; they are the unceasing urge that leads man to attempt the mastery of the material and present existence in the light of the spiritual and future career. The Monitors are the prisoners of undying hope, the founts of everlasting progression. And how they do enjoy communicating with their subjects in more or less direct channels! How they rejoice when they can

상대자의 지능 속에 떠오르게 할 때 얼마나 기쁨을 향유하는지!

너희 인간들은 거의 무한한 파노라마, 결코-끝남이 없는 한계가 없는 확장, 가슴 설레는 봉사를 위해 언제까지나-확장되는 기회의 구체들, 비할 데 없는 모험, 장엄한 불확실, 광대한 달성의 끝없는 전개를 시작하였다. 구름들이 머리위로 물려들 때, 너희의 신앙은 내주하는 조질자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렇게 필사자 불확실성의 안개너머에서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의 신호하는 고지위에 영원한 정의로움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dispense with symbols and other methods of indirection and flash their messages straight to the intellects of their human partners!

108:6.8 (1194.1) You humans have begun an endless unfolding of an almost infinite panorama, a limitless expanding of never-ending, ever-widening spheres of opportunity for exhilarating service, matchless adventure, sublime uncertainty, and boundless attainment. When the clouds gather overhead, your faith should accept the fact of the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thus you should be able to look beyond the mists of mortal uncertainty into the clear shining of the sun of eternal righteousness on the beckoning heights of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108:6.9 (1194.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09 편 조절자와 우주 창조체의 관계

⇨ 108

유랜시아 책

110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09 편 조절자와 우주 창조체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조절자의 발전

제 2 장.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

제 3 장. 필사자 유형과 조절자의 관계

제 4 장. 조절자와 인간의 개인성

제 5 장. 조절자 내주(內住)에 대한 물질적 장애

제 6 장. 참된 가치의 영속성

제 7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운영

PAPER 109

RELATION OF ADJUSTERS TO
UNIVERSE CREATURES

SECTIONS

Introduction

1. Development of Adjusters

2. Self-Acting Adjusters

3. Relation of Adjusters to Mortal Types

4. Adjusters and Human Personality

5. Material Handicaps to Adjuster

Indwelling

6. The Persistence of True Values

7. Destiny of Personalized Adjusters

소개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 생애의 아이들이며, 순결의 조절자들은 필사의 창조체가 자라고 발전하는 동안 반드시 체험을 얻어야만 한다. 어린아이의 개인성이 진화하는 실존으로서의 갈등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조절자도 상승하는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연습들 안에서 심오하게 되어간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놀이와 사회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활동에 여러 가지로 적응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주하는 조절자도 모른시아 생애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적인 필사자의 계획과 연습에 힘입어서 조화우주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은, 미래의 삶에서 더 많은 책임들과 더 엄청난 기회들을 조절자에 의해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실존에서의 하나의 기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자의 수고들은 너희의 안에 내주하는 동안에 행성에서의 실존과 일시적 삶의 관련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관여되지는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그 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인간 존재의 진화하는 마음속에서 우주적 삶의 실체들을 연습하여 익히고 있다.

INTRODUCTION

109:0.1 (1195.1) THE Thought Adjusters are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career, and indeed the virgin Adjusters must gain experience while mortal creatures grow and develop. As the personality of the human child expands for the struggles of evolutionary existence, so does the Adjuster wax great in the rehearsals of the next stage of ascending life. As the child acquires adaptative versatility for his adult activities through the social and play life of early childhood, so does the indwelling Adjuster achieve skill for the next stage of cosmic life by virtue of the preliminary mortal planning and rehearsing of those activities which have to do with the morontia career. Human existence constitutes a period of practice which is effectively utilized by the Adjuster in preparing for the increased responsibilities and the greater opportunities of a future life. But the Adjuster's efforts, while living within you, are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 affairs of temporal life and planetary existence. Today, the Thought Adjusters are, as it were, rehearsing the realities of the universe career in the evolving minds of human

beings.

제 1 장. 조절자의 발전

순결의 조절자들이 신성별로부터 보내지기 전에, 훈련교육과 발전에 대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계획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필사자 관계적-연합의 새 임무에 착수하기 전에, 내주하는 체험의 조절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확장된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감시자-내주 필사자가 생존되지 못할 때마다, 그 조절자가 신성별로 돌아갈 때, 확대된 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서 들어 왔다. 이 부가적인 교육은 인간 존재에 내주하였던 체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것은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다시 보내어지기 전에 항상 주어진다.

우주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새로 형성된 생각 조절자의 신성의 완전함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비 감시자에게 체험되어진 사명활동에서의 능력을 자질로서 부여하지 않는다. 체험은 살아 있는 실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체험은 어떤 신성한 자질도 실제적인 삶에 의해 확보하고 있는 필요성으로부터 너희를 면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절자들은 최극자의 현 구체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모든 존재들과 공통으로, 체험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체험이 되지 않은 낮은 상태에서부터 더욱 많이 체험된 높은 차원의 집단으로 진화해야 한다.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에서 한정된 발전적 생애를 체험하며,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달성의 실체를 성취한다. 그들은 물질적인 종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특정한 필사자 주체가 생존을 받든지 못 받든지에 상관없이, 점차적으로 조절자로서의 기술과 능력을 습득해 나간다. 또한 그들은 생존의 수용력을 지닌 불멸 혼의 진화를 양육하고 있는 것에서 인간 마음의 동등한 동반자이다.

조절자 진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필사 존재의 생존된 혼과 융합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하느님께로, 안쪽으로 그리고 위로 자연적인 진화를 하는 동안, 조절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자연적인 진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성(神性)과 인간성의 이 연합의 최종적 산물은 영원히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제 2 장.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

1. DEVELOPMENT OF ADJUSTERS

109:1.1 (1195.2) There must be a comprehensive and elaborate plan for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virgin Adjusters before they are sent forth from Divinington, but we really do not know very much about it. There undoubtedly also exists an extensive system for retraining Adjusters of indwelling experience before they embark upon new missions of mortal association, but, again, we do not actually know.

109:1.2 (1195.3) I have been told by Personalized Adjusters that every time a Monitor-indwelt mortal fails of survival, when the Adjuster returns to Divinington, an extended course of training is engaged in. This additional training is made possible by the experience of having indwelt a human being, and it is always imparted before the Adjuster is remanded to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109:1.3 (1195.4) Actual living experience has no cosmic substitute. The perfection of the divinity of a newly formed Thought Adjuster does not in any manner endow this Mystery Monitor with experienced ministrative ability. Experience is inseparable from a living existence; it is the one thing which no amount of divine endowment can absolve you from the necessity of securing by *actual living*. Therefore, in common with all beings living and functioning within the present sphere of the Supreme, Thought Adjusters must acquire experience; they must evolve from the lower, inexperienced, to the higher, more experienced, groups.

109:1.4 (1196.1) Adjusters pass through a definite developmental career in the mortal mind; they achieve a reality of attainment which is eternally theirs. They progressively acquire Adjuster skill and ability as a result of any and all contacts with the material races, regardless of the survival or nonsurvival of their particular mortal subjects. They are also equal partners of the human mind in fostering the evolution of the immortal soul of survival capacity.

109:1.5 (1196.2) The first stage of Adjuster evolution is attained in fusion with the surviving soul of a mortal being. Thus, while you are in nature evolving inward and upward from man to God, the Adjusters are in nature evolving outward and downward from God to man; and so will the final product of this union of divinity and humanity eternally be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2. SELF-ACTING ADJUSTERS

너희에게 조절자들을 체험에 관련하여—순결의, 진보의, 그리고 최극이라고—구분해 주었었다. 그리고 너희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능적 구분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다.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란 다음과 같다:

1. 인간이 생존에서 실패했던 실제적 융합 행성에서, 또는 조절자가 필사자 주체에게 단지 빌려줄 뿐인 그런 세계에서의 일시적인 거주자로서의 의지창조체의 진화하는 삶 속에서 일정한 필요 체험을 가졌던 존재이다. 그러한 감시자는 진보 또는 최극 조절자이다.

2. 세 번째 정신 순환계를 이루었고 또한 개인적인 세라핌천사 수호자가 배정되었던 인간 안에서 영적 힘의 균형을 취득한 존재이다.

3. 최극 결정을 내리고, 조절자와 함께 엄숙하며 진지하게 혼약에 들어간 주체를 가졌다. 조절자는 실제적 융합의 시기를 사전에 미리 바라보고 있으며, 연합을 사실의 사건으로 간주한다.

4. 필사자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진화의 세계에서 운명예비무리단 중 하나로 소집된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5. 어떤 때에는 인간이 자고 있는 동안에, 배정된 세계의 영적 관리-행정과 연관된 연락, 접촉, 재등록, 또는 어떤 가외-인간적 봉사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사자의 마음속에 간혀있는 상태로 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기도 하는 존재이다.

6. 행성의 영적 경영에 필수적인 어떤 조화우주 성취에 대한 역할이 맡겨진 영 개인성의 물질적 보완자였던 어떤 인간 존재에서의 체험 안에서 위기의 때에 봉사해 왔다.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내주하는 인간 개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현저한 정도의 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의지는 함께하는 필사자 주체 안과 그리고 밖에서 이루어진 많은 업적들에 의해서 표시된다. 그러한 조절자들은 영역의 많은 활동들 속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이 선택한 속세의 장막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내주하는 존재로서 더 많이 기능한다.

이와 같은 보다 높고 더 많이 체험된 유형의 조절자들은 다른 영역에 있는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이 그렇게 상호 교통하는 동안, 비록 위기의 기간 동안 행성들 간의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작용하는 경우들로 알려졌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그들의 상호 작업의 차원에서만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의 조절자로서의 사명활동에 필수적인 보관용 자료를 보전할 목적으로만 그렇게 할

109:2.1 (1196.3)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classification of Adjusters in relation to experience — virgin, advanced, and supreme. You should also recognize a certain functional classification — the self-acting Adjusters. A self-acting Adjuster is one who:

109:2.2 (1196.4) 1. Has had certain requisite experience in the evolving life of a will creature, either as a temporary indweller on a type of world where Adjusters are only loaned to mortal subjects or on an actual fusion planet where the human failed of survival. Such a Monitor is either an advanced or a supreme Adjuster.

109:2.3 (1196.5) 2. Has acquired the balance of spiritual power in a human who has made the third psychic circle and has had assigned to him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109:2.4 (1196.6) 3. Has a subject who has made the supreme decision, has entered into a solemn and sincere betrothal with the Adjuster. The Adjuster looks beforehand to the time of actual fusion and reckons the union as an event of fact.

109:2.5 (1196.7) 4. Has a subject who has been mustered into on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on an evolutionary world of mortal ascension.

109:2.6 (1196.8) 5. At some time, during human sleep, has been temporarily detached from the mind of mortal incarceration to perform some exploit of liaison, contact, reregistration, or other extrahuman servic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world of assignment.

109:2.7 (1196.9) 6. Has served in a time of crisis in the experience of some human being who was the material complement of a spirit personality intrusted with the enactment of some cosmic achievement essential to the spiritual economy of the planet.

109:2.8 (1196.10) Self-acting Adjusters seem to possess a marked degree of will in all matters not involving the human personalities of their immediate indwelling, as is indicated by their numerous exploits both within and without the mortal subjects of attachment. Such Adjusters participate in numerous activities of the realm, but more frequently they function as undetected indwellers of the earthly tabernacles of their own choosing.

109:2.9 (1196.11) Undoubtedly these higher and more experienced types of Adjusters can communicate with those in other realms. But while self-acting Adjusters do thus intercommunicate, they do so only on the levels of their mutual work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ustodial data essential to the Adjuster ministry of the realms of their sojourn, though on occasions they have been known to function in interplanetary matters during times of

수 있다.

최극이며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인간의 몸체를 뜻대로 떠날 수 있다. 내주하는 존재들은 필사 생명의 유기체적인 부분이나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신성한 초(超)부담(負擔)들이다. 그들은 본래의 생명 계획에서 조건적으로 주어졌으며, 물질적 실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이 내주한 후에는 그들의 필사자 장막을 임시적으로라도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초(超)활동의 조절자들은 위임된 그들의 임무를 달성하고, 그리고 오직 물질-생명 매체의 분해나 혹은 불멸 혼의 전환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제 3 장. 필사자 유형과 조절자의 관계

신비 감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의 성격은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들이 연락 또는 융합의 조절자이나 아니냐에 달려있다. 어떤 조절자들은 다만 그들의 주체들에게 일시적인 삶 동안만 대여되며, 다른 조절자들은 그들의 주체가 만일 생존되면, 영속하는 융합을 허락받은 개인성 후보로서 증여된다. 또한 그들의 활동에는 체계와 우주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행성 유형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활동은 놀랄 만큼 일치하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존재들의 창조된 계층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이다.

어떤 원시 상태의 세계들에서는 (제1 계열 집단) 체험적 훈련으로써 창조체의 마음속에 내주하며, 주로 자아-육성과 진보적 개발을 위해서이다. 순결의 조절자들은, 대개 원시인들이 결정의 골짜기에 도달하고 있는 초기 시절의 그러한 세계에 보내진다, 그러나 그때는 비교적 극소수만이 고등 차원의 창발하는 영성을 달성하는, 자아-정복과 성격 획득의 언덕들을 넘어서는 도덕적 높이로 상승할 것을 선택한다. (어찌되었든, 조절자와의 융합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영-융합 상승존재로 살아남는다.) 그 조절자들은 가치가 있는 훈련을 받아들이고 원시적인 마음과의 과도기적 관계적-연합 속에서 경이로운 체험을 획득하며, 그들은 이 체험을 뒤이어지는 다른 세계들의 우월한 존재들에게 은혜로 활용한다. 생존할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넓은 우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유형의 세계에서는 (제2 계열 집단) 조절자들이 필사 존재들에게 단순히 대여된다. 여기에서 감시자들이 그러한 내주(內住)를 통해서는 개인성과 융합을 달성할 수 없지만, 필사자의 일생 동안에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crisis.

109:2.10 (1197.1) Supreme and self-acting Adjusters can leave the human body at will. The indwellers are not an organic or biologic part of mortal life; they are divine superimpositions thereon. In the original life plans they were provided for, but they are not indispensable to material existence. Nevertheless it should be recorded that they very rarely, even temporarily, leave their mortal tabernacles after they once take up their indwelling.

109:2.11 (1197.2) The superacting Adjusters are those who have achieved the conquest of their intrusted tasks and only await the dissolution of the material-life vehicle or the translation of the immortal soul.

3. RELATION OF ADJUSTERS TO MORTAL TYPES

109:3.1 (1197.3) The character of the detailed work of Mystery Monitors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ir assignments, as to whether or not they are *liaison* or *fusion* Adjusters. Some Adjusters are merely loaned for the temporal lifetimes of their subjects; others are bestowed as personality candidates with permission for everlasting fusion if their subjects survive. There is also a slight variation in their work among the different planetary types as well as in different systems and universes. But, on the whole, their labors are remarkably uniform, more so than are the duties of any of the created orders of celestial beings.

109:3.2 (1197.4) On certain primitive worlds (the series one group) the Adjuster indwells the mind of the creature as an experiential training, chiefly for self-culture and progressive development. Virgin Adjusters are usually sent to such worlds during the earlier times when primitive men are arriving in the valley of decision, but when comparatively few will elect to ascend the moral heights beyond the hills of self-mastery and character acquirement to attain the higher levels of emerging spirituality. (Many, however, who fail of Adjuster fusion do survive as Spirit-fused ascenders.) The Adjusters receive valuable training and acquire wonderful experience in transient association with primitive minds, and they are able subsequently to utilize this experience for the benefit of superior beings on other worlds. *Nothing of survival value is ever lost in all the wide universe.*

109:3.3 (1197.5) On another type of world (the series two group) the Adjusters are merely loaned to mortal beings. Here the Monitors can never attain fusion personality through such indwelling, but they do afford great help to their human subjects during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의 인간 주체들에게 도움을 잘 제공하고 있다. 조절자들은 여기에서 펄사 창조체들에게 단회적인 짧은 생의 기간 동안 그들의 보다 높은 영적 달성을 위한 양식(樣式)으로, 생존된 성격을 완전하게 하는 흥미로운 임무에 임시적 조력자로 대여된다. 그 조절자들은 자연사(自然死)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으며, 이들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영과의 융합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얻는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제3 계열 집단) 신성한 선물들과의 실제 혼약, 삶과 죽음의 약혼이 있다. 만일 너희가 생존을 얻으면, 영원한 연합, 사람과 조절자가 하나로 되는 영속하는 융합이 있게 될 것이다.

삼분(三分)된-뇌를 가진 계열의 세계에 있는 펄사자 안에서는, 조절자들이 분리되지 않은 뇌 또는 이분(二分)된-뇌의 유형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적 접촉을 그들의 대상자들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은 뇌의 유형이나 이분된 뇌의 유형—유란시아의 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삼분(三分)된-뇌의 유형도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분된-뇌의 세계에서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증여된 아들이 이 땅에 머문 이후에, 생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순결의 조절자들이 배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러한 세계들에서 생존의 능력을 가진 지적인 남자와 여자들 속에 내주하는 모든 조절자들은 실천적으로 진보된 또는 최극적인 유형에 속한다.

유란시아의 초기 진화적 인종들 대부분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존재 집단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조절자 수용능력이 전적으로 결핍되어 거의 동물에 가까운 자들이 있었다. 조절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여 도덕적 책임감이 달성되는 나이가 되면 즉시 조절자를 받았던 자들도 있었다. 경계선에 있던 세 번째 등급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절자 받아들임을 위한 능력은 갖추었으나 감시자가 개별존재의 개인적 청원이 있어야만 마음속에 내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순결의 조절자들은, 부적당하고 열등한 조상들에서의 대리자를 거치면서 박탈된 유전적 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의 경우에서, 진화하는 마음과의 접촉으로 가치 있는 예비 체험을 봉사해 왔고,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세계의 보다 높은 유형의 마음에 배정되기 위하여, 더욱 잘 분별화되어 진다..

제 4 장. 조절자와 인간의 개인성

인간 존재들 사이의 지능적인 상호 교통의 보다 높은 형태들은 내주하는 조절자에 의해 엄청나게 도움을받는다. 동물들도 동료 감정을 갖고 있으나, 그들은 서로 개념을 교통하지는 않는다, 감

the mortal lifetime, far more than they are able to give to Urantia mortals. The Adjusters are here loaned to the mortal creatures for a single life span as patterns for their higher spiritual attainment, temporary helpers in the intriguing task of perfecting a survival character. The Adjusters do not return after natural death; these surviving mortals attain eternal life through Spirit fusion.

109:3.4 (1197.6) On worlds such as Urantia (the series three group) there is a real betrothal with the divine gifts, a life and death engagement. If you survive, there is to be an eternal union, an everlasting fusion, the making of man and Adjuster one being.

109:3.5 (1197.7) In the three-brained mortals of this series of worlds, the Adjusters are able to gain far more actual contact with their subjects during the temporal life than in the one- and two-brained types. But in the career after death, the three-brained type proceed just as do the one-brained type and the two-brained peoples — the Urantia races.

109:3.6 (1198.1) On the two-brain worlds, subsequent to the sojourn of a Paradise bestowal Son, virgin Adjusters are seldom assigned to persons who have unquestioned capacity for survival. It is our belief that on such worlds practically all Adjusters indwelling intelligent men and women of survival capacity belong to the advanced or to the supreme type.

109:3.7 (1198.2) In many of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f Urantia, three groups of beings existed. There were those who were so animalistic that they were utterly lacking in Adjuster capacity. There were those who exhibited undoubted capacity for Adjusters and promptly received them when the age of moral responsibility was attained. There was a third class who occupied a borderline position; they had capacity for Adjuster reception, but the Monitors could only indwell the mind on the personal petition of the individual.

109:3.8 (1198.3) But with those beings who are virtually disqualified for survival by disinheritance through the agency of unfit and inferior ancestors, many a virgin Adjuster has served a valuable preliminary experience in contacting evolutionary mind and thus has become better qualified for a subsequent assignment to a higher type of mind on some other world.

4. ADJUSTERS AND HUMAN PERSONALITY

109:4.1 (1198.4) The higher forms of intelligent inter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are greatly helped by the indwelling Adjusters. Animals do have fellow feelings, but they do not

정을 표현할 뿐, 관념이나 이상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동물에서 기원된 사람도 생각 조절자가 증여되기 전까지는 높은 유형의 지적 교류나 영적 교제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화 창조체들이 언어를 개발할 때는, 그들은 조절자를 받는 순탄한 길에 나서는 것이다.

동물들은 미숙한 방법으로 서로 교통하지만, 그러한 원시적인 접촉에는 개인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 조절자들은 개인성이 아니며, 전(前)개인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성의 근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며, 그들의 현존은 인간 개인성의 질적인 현시활동을 증강하는 것이다, 특히 만약 조절자들이 이전의 체험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더욱 확실하다.

조절자의 유형은 인간 개인성의 표현을 위한 잠재와 함께 많은 상관이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유란시아의 위대한 지적, 영적 영도자들은 주로 그들에게 내주하였던 조절자들의 우월성과 그리고 이전의 체험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었다.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고대의 원시인들의 후손들을 인간화시키고 변환시키는 데에서, 다른 어떤 영적 영향들과 많은 협력을 하였다. 만약에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던 조절자가 모두 떠나가게 되면, 그 세계는 서서히 다시 원시 시대의 모습과 실천 관행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신성한 감시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실제적 잠재들의 하나이다.

나는 유란시아의 어느 마음속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를 관찰하고 있는데, 유버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르본톤에서 이전에 15개의 마음속에 내주하였었다. 우리는 이 감시자가 다른 초우주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그는 경이로운 조절자이며, 지금 현재의 세대 동안에 유란시아에 가장 유용하고 강력한 기체들 중의 하나이다. 다른 이들이 생존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이 인간 존재(그리고 너희 전 세계)가 지금 얻고 있다. 체험하는 조절자가 지금 갖고 있을지라도 생존 받을 본질특성이 없는 자는 이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반면에 생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는 나태한 포기자가 가졌던 이전-체험을 가진 조절자까지 주어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조절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의 권역 안에서 행성적인 교류-융합을 어느 정도 양육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행성에서 두 번의 내주 체험을 갖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전에 이 세계에 있었던 조절자가 유란시아에서 다시 봉사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유버사의 기록보관소 안에 있는 그들의 번호들과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communicate concepts to each other; they can express emotions but not ideas and ideals. Neither do men of animal origin experience a high type of intellectual intercourse or spiritual communion with their fellows until the Thought Adjusters have been bestowed, albeit, when such evolutionary creatures develop speech, they are on the highroad to receiving Adjusters.

109:4.2 (1198.5) Animals do, in a crude w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there is little or no *personality* in such primitive contact. Adjusters are not personality; they are prepersonal beings. But they do hail from the source of personality, and their presence does augment the qualitative manifestations of human personality; especially is this true if the Adjuster has had previous experience.

109:4.3 (1198.6) The type of Adjuster has much to do with the potential for expression of the human personality. On down through the ages, many of the great intellectual and spiritual leaders of Urantia have exerted their influence chiefly because of the superiority and previous experience of their indwelling Adjusters.

109:4.4 (1198.7) The indwelling Adjusters have in no small measure co-operated with other spiritual influences in transforming and humanizing the descendants of the primitive men of olden ages. If the Adjusters indwelling the minds of the inhabitants of Urantia were to be withdrawn, the world would slowly return to many of the scenes and practices of the men of primitive times; the divine Monitors are one of the real potentials of advancing civilization.

109:4.5 (1198.8) I have observed a Thought Adjuster indwelling a mind on Urantia who has, according to the records on Uversa, indwelt fifteen minds previously in Orvonton. We do not know whether this Monitor has had similar experiences in other superuniverses, but I suspect so. This is a marvelous Adjuster and one of the most useful and potent forces on Urantia during this present age. What others have lost, in that they refused to survive, this human being (and your whole world) now gains. From him who has not survival qualities,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experienced Adjuster which he now has, while to him who has survival prospects, shall be given even the pre-experienced Adjuster of a slothful deserter.

109:4.6 (1199.1) In a sense the Adjusters may be fostering a certain degree of planetary cross-fertilization in the domai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But they are seldom given two indwelling experiences on the same planet; there is no Adjuster now serving on Urantia who has been on this world previously. I know whereof I speak since we have their numbers and records in the archives of Uversa.

제 5 장. 조절자 내주(內住)에 대한 물질적 장애

최극의 그리고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은 종종, 해방되었지만 통제된 창조적 상상의 경로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인간 마음에게, 영적 중요성의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그리고 때때로 잠자고 있을 때, 조절자가 정신적 흐름을 사로잡아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개념의 진행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초(超)의식의 보다 높은 심오한 곳에서 깊은 영적 변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마음의 기세와 에너지가 현재 그리고 장래의 영적 차원에서 접촉되어지는, 음조의 기준 음에 더욱 충분하게 조절되어진다.

때로는, 마음이 밝게 빛을 받도록 하는 것, 너희들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 그로서 네가, 네 안에 계속 내주하는 잠재적 개인성의 지혜, 진리, 선(善),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의식되기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의 불안정함과 조금하게 바뀌는 정신적 태도가 종종, 조절자들의 일을 망치고 계획이 방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일은 필사 종족들의 타고난 자연본성 때문에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명활동은 너희들 자신이 만든 선입견, 고정 관념, 그리고 오래동안-지탱하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저지를 받는다. 이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의 미완결된 창조들이 번번이 단지 의식 안에서만 창발되고, 그래서 개념의 혼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상황을 낱알이 싹피울 때에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생각과 체험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려고 했었는지 하는 것은 전부 무시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실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에 즉시 인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성향들을 신비 감시자의 신성한 현존으로 개시되는 영적 충동의 요구들에 맞추는 일이다. 우주 또는 초우주 생애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에, 유란시아에서의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 주인을 강제적으로 섬겨야만 한다. 그가 오직 하나의 주인에게 영적으로 충성하는 동안, 그는 계속적인 인간의 임시적 타협 기술에 반드시 숙달되어야만 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그토록 많은 망설임과 실패가 진화적 갈등의 긴장감에 피로를 증대시키고 굴복하게 하는 이유이다.

대뇌의 부여된-자질과 전기화학적 전반적-통제의 유전적인 유산 둘 모두 조절자의 효과적인 활동 영역을 한정시키는 반면에, 어떤 유전적 장애도(정상적인 마음속에 있는) 생겨나는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유전이 개인성 정복의 비율에 간섭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는 모험에서의

5. MATERIAL HANDICAPS TO ADJUSTER
INDWELLING

109:5.1 (1199.2) Supreme and self-acting Adjusters are often able to contribute factors of spiritual import to the human mind when it flows freely in the liberated but controlled channels of creative imagination. At such times, and sometimes during sleep, the Adjuster is able to arrest the mental currents, to stay the flow, and then to divert the idea procession; and all this is done in order to effect deep spiritual transformations in the higher recesses of the superconsciousness. Thus are the forces and energies of mind more fully adjusted to the key of the contactual tones of the spiritual level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109:5.2 (1199.3) It is sometimes possible to have the mind illuminated, to hear the divine voice that continually speaks within you, so that you may become partially conscious of the wisdom, truth, goodness, and beauty of the potential personality constantly indwelling you.

109:5.3 (1199.4) But your unsteady and rapidly shifting mental attitudes often result in thwarting the plans and interrupting the work of the Adjusters. Their work is not only interfered with by the innate natures of the mortal races, but this ministry is also greatly retarded by your own preconceived opinions, settled ideas, and long-standing prejudices. Because of these handicaps, many times only their unfinished creations emerge into consciousness, and confusion of concept is inevitable. Therefore, in scrutinizing mental situations, safety lies only in the prompt recognition of each and every thought and experience for just what it actually and fundamentally is, disregarding entirely what it might have been.

109:5.4 (1199.5) The great problem of life is the adjustment of the ancestral tendencies of living to the demands of the spiritual urges initiated by the divine presence of the Mystery Monitor. While in the universe and superuniverse career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in the life you now live on Urantia every man must perforce serve two masters. He must become adept in the art of a continuous human temporal compromise while he yields spiritual allegiance to but one master; and this is why so many falter and fail, grow weary and succumb to the stress of the evolutionary struggle.

109:5.5 (1199.6) While the hereditary legacy of cerebral endowment and that of electrochemical overcontrol both operate to delimit the sphere of efficient Adjuster activity, no hereditary handicap (in normal minds) ever prevents eventual spiritual achievement. Heredity may interfere with the rate

생겨나는 완성을 막지는 못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조절자와 협조한다면, 조만간에, 신성한 선물이 불멸의 모론시아 혼을 진화시킬 것이며, 융합과 함께 그 이후에는, 그 새로운 창조체를 지역 우주의 주권자 주(主) 아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파라다이스에서 조절자들의 아버지께 내 보일 것이다.

제 6 장. 참된 가치의 영속성

조절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생존할 만한 가치는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의지 창조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모든 가치는 의미-발견이나 또는 평가하는 개인성이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살아남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필사의 창조체가 생존하기를 거절하기도 하지만, 삶의 체험은 여전히 버려지지 않고, 영원한 조절자가 그렇게 외견상으로 실패한 삶의 가치-있는 모습들을 다른 세계로 가져가서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보다 높은 유형의 필사자의 마음속에 이들 살아남은 의미와 가치들을 증여해 준다. 가치-있는 체험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으며, 참된 의미나 실제적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융합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만일 신비 감시자가 필사자 연관-동료에 의해 버림받으면, 만일 인간 동반자가 상승하는 생애를 따르기를 거절하면, 자연적인 죽음(또는 그 이전에)에 의해 풀려나게 될 때 조절자는 생존되지 못한 창조체의 마음속에서 발전되었던 영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 만일 어느 조절자가 연속되는 인간 주체가 살아남지 못하여서, 개인성 융합 달성에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이 감시자가 그 후에 개인성구현되면, 내주하는 동안 획득한 모든 체험들과 터득한 모든 필사자 마음들은 새로운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실제적 소유가 되는 것이며, 장래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것이다. 이 계층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이전의 모든 그의 창조체 주인들의 모든 생존하는 특색들의 복합된 조립이다.

긴 우주 체험을 가진 조절자가, 증여되는 임무를 수행중인 신성한 아들들에게 내주하기 위하여 자원할 때, 그들은 이 봉사를 통하여 개인성 달성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종종 이 지원자들에게 개인성을 수여하며 그의 동료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도록 하신다. 이는 신성별에서 권한과 함께 수여된 개인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유한 본성들은 필사자 속에 내주하여 체험하는 여러 가지의 모자이크식의 인간성과 그리고, 종결되는 내주하는 체험의 파라다이스 증여 아들의 인간 신성의 영적 사본(寫本)을 체현한다.

너희 지역우주에서 조절자들의 활동은 네바

of personality conquest, but it does not prevent eventual consummation of the ascendant adventure. If you will co-operate with your Adjuster, the divine gift will, sooner or later, evolve the immortal morontia soul and, subsequent to fusion therewith, will present the new creature to the sovereign Master Son of the local universe and eventually to the Father of Adjusters on Paradise.

6. THE PERSISTENCE OF TRUE VALUES

109:6.1 (1200.1) Adjusters never fail; nothing worth surviving is ever lost; every meaningful value in every will creature is certain of survival, irrespective of the survival or nonsurvival of the meaning-discovering or evaluating personality. And so it is, a mortal creature may reject survival; still the life experience is not wasted; the eternal Adjuster carries the worth-while features of such an apparent life of failure over into some other world and there bestows these surviving meanings and values upon some higher type of mortal mind, one of survival capacity. No worth-while experience ever happens in vain; no true meaning or real value ever perishes.

109:6.2 (1200.2) As related to fusion candidates, if a Mystery Monitor is deserted by the mortal associate, if the human partner declines to pursue the ascending career, when released by natural death (or prior thereto), the Adjuster carries away everything of survival value which has evolved in the mind of that nonsurviving creature. If an Adjuster should repeatedly fail to attain fusion personality because of the nonsurvival of successive human subjects, and if this Monitor should subsequently be personalized, all the acquired experience of having indwelt and mastered all these mortal minds would become the actual possession of such a newly Personalized Adjuster, an endowment to be enjoyed and utilized throughout all future ages. A Personalized Adjuster of this order is a composite assembly of all the survival traits of all his former creature hosts.

109:6.3 (1200.3) When Adjusters of long universe experience volunteer to indwell divine Sons on bestowal missions, they full well know that personality attainment can never be achieved through this service. But often does the Father of spirits grant personality to these volunteers and establish them as directors of their kind. These are the personalities honored with authority on Divinington. And their unique natures embody the mosaic humanity of their multiple experiences of mortal indwelling and also the spirit transcript of the human divinity of the Paradise bestowal Son of the terminal indwelling experience.

109:6.4 (1200.4) The activities of Adjusters in your local universe are directed by the Personalized

돈에 있는 미가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육신 속에서 그의 인간 삶을 살 때 그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였던 바로 그 감시자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그의 신뢰에 신앙을 더한 것은 이 비범한 조절자이었으며, 이 용맹스러운 감시자는 현명하게 인간적 본성을 지도하여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찾아 가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들의 필사자 마음을 안내하였다. 이 조절자는 아브라함의 때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이미 사명활동을 하였고, 이렇게 내주하기 전에, 증여 체험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훈을 세우는 데 몰두 하였었다.

이 조절자는 예수의 인간 마음 안에서—거듭하여 생기는 삶의 상황의 각각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헌납되는 전념을 유지했던 바로 그 마음 안에서—참으로 승리하였다. 그러한 결단성 있는 전념은 인간 본성의 한계로부터 신성한 달성의 최경으로 들어가는 참된 통행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동일한 조절자는 지금 그의 막강한 개인성의 불가사의한 본성 안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의 세례 이전의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의 완벽한 고갈에 이르기까지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의 평범한 삶의 비참한 환경으로부터 창조되어 나타난, 모든 유란시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원하고 살아 있는 가치들의 영원하고 살아 있는 등본이다.

조절자에게 위임된 영구한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감시자가 장차 필사자 마음속에 내주하는 증여를 위하여 이 소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개인성구현을 이룬 후에, 살아남아 보존되는 이 실체들이 주(主)우주 고안건축가의 봉사 안에서 장차 쓰이기 위하여 보관된다.

제 7 장.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운명

우리는 조절자가 아닌 아버지의 단편들이 개인성구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는 개인성이 우주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로 증여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버지의 단편에서 조절자 유형은 개인적 존재에 대한 봉사-사명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인적 속성을 획득해야만 개인성을 달성한다. 이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신성별에 있는 집에 있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전(前)개인적 연관-동료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들은 속박 받지 않고, 배정되지 않고, 그리고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우주의 주권적 안정자이며 보상자들이다. 그들은—실존적이며 체험적인—창조자와 창조체의 체험을 병합시킨다. 그들은 시간과 영원을 공동으로 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과 전(前)개인적인 것을 연관시킨

Adjuster of Michael of Nebadon, that very Monitor who guided him step by step when he lived his human life in the flesh of Joshua ben Joseph. Faithful to his trust was this extraordinary Adjuster, and wisely did this valiant Monitor direct the human nature, ever guiding the mortal mind of the Paradise Son in the choosing of the path of the Father's perfect will. This Adjuster had previously served with Machiventa Melchizedek in the days of Abraham and had engaged in tremendous exploits both previous to this indwelling and between these bestowal experiences.

109:6.5 (1200.5) This Adjuster did indeed triumph in Jesus' human mind — that mind which in each of life's recurring situations maintained a consecrated dedication to the Father's will, saying,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Such decisive consecration constitutes the true passport from the limitations of human nature to the finality of divine attainment.

109:6.6 (1200.6) This same Adjuster now reflects in the inscrutable nature of his mighty personality the prebaptismal humanity of Joshua ben Joseph, the eternal and living transcript of the eternal and living values which the greatest of all Urantians created out of the humble circumstances of a commonplace life as it was lived to the complete exhaustion of the spiritual values attainable in mortal experience.

109:6.7 (1201.1) Everything of permanent value which is intrusted to an Adjuster is assured eternal survival. In certain instances the Monitor holds these possessions for bestowal on a mortal mind of future indwelling; in others, and upon personalization, these surviving and conserved realities are held in trust for future utilization in the service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7. DESTINY OF PERSONALIZED ADJUSTERS

109:7.1 (1201.2) We cannot state whether or not non-Adjuster Father fragments are personalizable, but you have been informed that personality is the sovereign freewill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As far as we know, the Adjuster type of Father fragment attains personality only by the acquirement of personal attributes through service-ministry to a personal being. These Personalized Adjusters are at home on Divinington, where they instruct and direct their prepersonal associates.

109:7.2 (1201.3)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s are the untrammelled, unassigned, and sovereign stabilizers and compensators of the far-flung universe of universes. They combine the Creator and creature experience — existential and experiential. They are conjoint time and eternity beings. They associate the prepersonal and the

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주(主)우주 고안건 축가들의 전적으로 지혜롭고 강력한 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우주 아버지의 모든 사명활동—개인적, 전(前)개인적, 그리고 초개인적—에 대한 개인적 활동대리자들이다. 그들은 궁극자 하느님의 영토인 초월적 아(亞)절대 구체의 모든 세계들에 두루 심지어는 절대자 하느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비범한, 비상한, 그리고 예기치 않은 것의 개인적 사명활동자들이다.

그들은, 그들 존재 안에 모든 알려진 개인성 관계들을 포용하는 우주들의 독점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全)개인적이다—그들은 개인성 이전이고, 그들은 개인성이며, 그들은 개인성 이후이다. 그들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 안에서처럼 그에 따라서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을 베풀고 있다.

무한자와 절대자 계층에서의 실존적 개인성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자기 자신의 사명활동을 위하여, 실존적인 전(前)개인적 조절자위에 증여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 유형으로의 체험적 개인성을 남겨놓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둘 모두 궁극자, 최극-궁극자 심지어는 최극-절대자 차원에 이르는 아(亞)절대 영역에서 초월적 사명활동을 베푸는 미래의 영원한 초(超)개인성으로 운명되어져 있다.

우주들 안에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상의를 하며, 칠중(七重)의 창조자 아들들과 함께 하였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이 보론다텍 통치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별자리의 본부가 있는 세계에 오기도 한다.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보론다텍 관찰자—너희가 있는 세상의 비상 대리통치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지고자 보호관리자—가 거주충독 현존 앞에서 그의 권한을 나타내었을 때, 그는 그가 선택한 모든 참모진들과 함께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비상 관리-행정을 시작하였다. 그는 즉시로 모든 연관-동료들과 보좌관들에게 행성에서의 그들의 임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리통치를 맡는 순간에 그의 현존 앞에 나왔던 세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전의 대리통치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성한 현존을 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고자 대리자는 이 자원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게 어떤 임무나 확실한 의무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전(全)개인적 존재들은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천성의 존재들의 많은 계층에서 가장 활동적인 편에 속했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은 우주 개인성들의

personal in universe administration.

109:7.3 (1201.4) Personalized Adjusters are the all-wise and powerful executives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the personal agents of the full ministry of the Universal Father — personal, prepersonal, and superpersonal. They are the personal ministers of the extraordinary, the unusual, and the unexpected throughout all the realms of the transcendental absonite spheres of the domain of God the Ultimate, even to the levels of God the Absolute.

109:7.4 (1201.5) They are the exclusive beings of the universes who embrace within their being all the known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they are omnipersonal — they are before personality, they are personality, and they are after personality. They minister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as in the eternal past, the eternal present, and the eternal future.

109:7.5 (1201.6) Existential personality on the order of the infinite and absolute, the Father bestowed upon the Eternal Son, but he chose to reserve for his own ministry the experiential personality of the typ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bestowed upon the existential prepersonal Adjuster; and they are thus both destined to the future eternal superpersonality of the transcendental ministry of the absonite realms of the Ultimate, the Supreme-Ultimate, even to the levels of the Ultimate-Absolute.

109:7.6 (1201.7) Seldom are the Personalized Adjusters seen at large in the universes. Occasionally they consult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sometimes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sevenfold Creator Sons come to the headquarters worlds of the constellations to confer with the Vorondadek rulers.

109:7.7 (1201.8) When the planetary Vorondadek observer of Urantia — the Most High custodian who not long since assumed an emergency regency of your world — asserted his authority in the presence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he began his emergency administration of Urantia with a full staff of his own choosing. He immediately assigned to all his associates and assistants their planetary duties. But he did not choose the three Personalized Adjusters who appeared in his presence the instant he assumed the regency. He did not even know they would thus appear, for they did not so manifest their divine presence at the time of a previous regency. And the Most High regent did not assign service or designate duties for these volunteer Personalized Adjusters. Nevertheless, these three omnipersonal beings were among the most active of the numerous orders of celestial beings then serving on Urantia.

109:7.8 (1202.1) Personalized Adjusters perform a

수많은 계층을 위하여 넓은 범위의 봉사를 수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들 조절자-내주된 진화하는 창조체의 사명활동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비범한 인간 신성들은 전체 대우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인성들에 속하며, 누구도 감히 그들의 장차 임무가 어떨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는다.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wide range of services for numerous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but we are not permitted to discuss these ministries with Adjuster-indwelt evolutionary creatures. These extraordinary human divinities are among the most remarkable personalities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and no one dares to predict what their future missions may be.

109:7.9 (1202.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10 편 조절자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 109

유랜시아 책

111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0 편 조절자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섹션

소개

제 1 장. 필사자 마음에 내주함

제 2 장. 조절자와 인간의 의지

제 3 장. 조절자와의 협조

제 4 장. 마음 안에서의 조절자의 일

제 5 장.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

제 6 장. 일곱 정신 순환계

제 7 장. 불멸성의 달성

PAPER 110

RELATION OF ADJUSTERS TO
INDIVIDUAL MORTALS

SECTIONS

Introduction

1. Indwelling the Mortal Mind

2. Adjusters and Human Will

3. Co-operation with the Adjuster

4. The Adjuster's Work in the Mind

5. Erroneous Concepts of Adjuster Guidance

6. The Seven Psychic Circles

7. The Attainment of Immortality

소개

불완전한 존재에게 자유를 자질부여 하는 것에는 필연적인 비극이 수반되며, 사랑하는 동행자 신분 속에서 우주적으로 그리고 애정을 담고 이들 고통을 나누려는 것이 그 조상이 되는 완전한 신(神)의 자연본성이다.

우주의 관련사들에 대하여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한, 모든 창조 중에서 생각 조절자의 사랑과 헌신이 가장 참되게 신성한 애정이라고 본다. 종족에 대한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아들들의 사랑이 장엄하지만, 개별존재에 대한 조절자의 헌신은 감동을 일으키도록 숭고하고, 신성하게 아버지-다운 것이다.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창조자로서의 배타적인 특권으로써 개별 창조체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 형식을 명백하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리고 진화하는 행성들에 사는 자녀들에게 그토록 황홀하게 내주하는 이들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의 경이로운 사명활동에 딱 맞게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아무 것도 없다.

INTRODUCTION

110:0.1 (1203.1) THE endowment of imperfect beings with freedom entails inevitable tragedy, and it is the nature of the perfect ancestral Deity to universally and affectionately share these sufferings in loving companionship.

110:0.2 (1203.2) As far as I am conversant with the affairs of a universe, I regard the love and devotion of a Thought Adjuster as the most truly divine affection in all creation. The love of the Sons in their ministry to the races is superb, but the devotion of an Adjuster to the individual is touchingly sublime, divinely Fatherlike. The Paradise Father has apparently reserved this form of personal contact with his individual creatures as an exclusive Creator prerogative. And there is nothing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exactly comparable to the marvelous ministry of these impersonal entities that so fascinatingly indwell the children of the evolutionary planets.

제 1 장. 필사자 마음에 내주함

1. INDWELLING THE MORTAL MIND

조절자들이 인간 존재의 물질적 뇌 속에서 산다고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그 영역에서의 물리적 창조체의 유기적 부분이 아니다. 각각 조절자는 단일 신체 기관에 국한되어 존재하기 보다는 사람의 필사 마음에 내주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조절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인지되지 않게 인간 주체와 항상 교통하고 있는 데, 특별히 초(超)의식 속에서 마음이 영과 경건한 접촉을 이루는 숭고한 체험을 하는 동안 더욱 그러하다.

나는 사람의 영적 변형을 돌보는 과업에 그토록 헌신적으로 진실한, 사람들 안에서 함께 사는 조절자들의 사심-없고 장엄한 일이, 진화하는 필사자들에게 더욱 깊은 올바른 삶으로 달성되고 보다 나은 남득을 성취하도록 내가 돕는 것이 가능했으면 하고 바란다. 이들 감시자들은 사람 마음의 보다 높은 위상을 위한 사명활동자이다; 그들은 인간 지능의 영적 잠재를 다루는 지혜롭고도 체험을 지닌 조종자이다. 이들 하늘의 조력자들은 행복의 천국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안전하게 너희를 인도하는 엄청난 과업에 전념되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이들 일꾼은 영속하는 너희 삶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승리를 장차 개인화구현하는 일에 바쳐져 있다. 그들은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멀리-떨어진 영원한 해안에 있는 완전의 신성한 항구(港口)를 향하도록 노력하게 안내하면서, 하느님-의식의 인간 마음이 악의 모래톱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인도하는 경계심 많은 일꾼들이다. 조절자들은 땅에서 사는 너희의 짧은 삶에서의 어둡고 불확실한 미로를 거쳐 가는 너희의 안전하고도 확실한 안내자들이며, 사랑하는 영도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체들이 진보하는 완전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참을성 있는 선생들이다. 그들은 창조체 성격의 숭고한 가치들을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보호관리자들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만하게 그들과 협동하며, 그리고 더욱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그 신성한 내주자들이 결코-끝남이 없는 실존의 다음 단계를 위한 너희의 영적 준비에 주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들은 또한 너희의 현재적 변형과 이 땅에서의 너희의 실제적 성취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참된 변형에 기여하기를 기뻐한다. 그들은 영원한 진보의 너희의 미래 삶에 해롭지 않은, 행성에서의 진보의 모든 문제에서 너희의 성공에 무관심하지 않다.

너희의 매일 매일의 하는 일과 너희의 삶의 다양한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너희의 중대한 현재적 선택과 치명적인 영적 결정의 결심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하여 혼의 생존과 영원한 진보에 관한 너희 문제의 해결에 요소가 되는, 바로 그 한도까지, 조절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여하고 있다. 조절자는 순전히 현재적인 변형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반면에 너희의 영원 미

110:1.1 (1203.3) Adjuster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living in the material brains of human beings. They are not organic parts of the physical creatures of the realms. The Thought Adjuster may more properly be envisaged as indwelling the mortal mind of man rather than as existing within the confines of a single physical organ. And indirectly and unrecognized the Adjuster is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the human subject, especially during those sublime experiences of the worshipful contact of mind with spirit in the superconsciousness.

110:1.2 (1203.4) I wish it were possible for me to help evolving mortals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attain a fuller appreciation of the unselfish and superb work of the Adjusters living within them, who are so devoutly faithful to the task of fostering man's spiritual welfare. These Monitors are efficient ministers to the higher phases of men's minds; they are wise and experienced manipulators of the spiritual potential of the human intellect. These heavenly helpers are dedicated to the stupendous task of guiding you safely inward and upward to the celestial haven of happiness. These tireless toilers are consecrated to the future personification of the triumph of divine truth in your life everlasting. They are the watchful workers who pilot the God-conscious human mind away from the shoals of evil while expertly guiding the evolving soul of man toward the divine harbors of perfection on far-distant and eternal shores. The Adjusters are loving leaders, your safe and sure guides through the dark and uncertain mazes of your short earthly career; they are the patient teachers who so constantly urge their subjects forward in the paths of progressive perfection. They are the careful custodians of the sublime values of creature character. I wish you could love them more, co-operate with them more fully, and cherish them more affectionately.

110:1.3 (1204.1) Although the divine indwellers are chiefly concerned with your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next stage of the never-ending existence, they are also deeply interested in your temporal welfare and in your real achievements on earth. They are delighted to contribute to your health, happiness, and true prosperity. They are not indifferent to your success in all matters of planetary advancement which are not inimical to your future life of eternal progress.

110:1.4 (1204.2) Adjusters are interested in, and concerned with, your daily doings and the manifold details of your life just to the extent that these are influential in the determination of your significant temporal choices and vital spiritual decisions and, hence, are factors in the solution of your problem of soul survival and eternal progress. The Adjuster, while passive regarding purely temporal welfare, is

래의 모든 관련사와 관련해서는 신성하게 적극적이다.

조절자는 정신을 온통 파괴하지 않는 한, 모든 질병에 두루 그리고 모든 재난들 속에서도 너희와 변함없이 함께 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온 이 경이로운 선물을 위해 마련된 이 땅에서의 장막인 물질 몸체를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또는 불결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악의적으로 가혹한 것이겠는가. 모든 물리적 독물은 물질 마음을 드높이려는 조절자의 노력을 심하게 저지하며, 한편으로 두려움, 노여움, 질투심, 투기, 의심, 그리고 편협함 같은 정신적 독물은 진화하는 혼의 영적 진보를 엄청나게 방해한다.

너는 오늘 조절자의 구애자 신분의 시기를 거치며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영원한 연합에서 너희의 마음과 혼을 찾아나서는 신성한 영이, 너희가 너희 안에 맡겨진 신뢰에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모론시아의 하나 됨, 천상의 조화, 조화우주 조화-협동, 신성한 조율, 천상의 융합, 결코-끝남이 없는 정체성의 혼합, 그리고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가장 체험 많은 개인성일지라도 융합 동반자—필사 사람과 신성한 조절자—를 결코 분리된 정체성으로 인지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의 하나 됨이 잇달아 일어날 것이다.

제 2 장. 조절자와 인간의 의지

생각 조절자들이 인간의 마음에 내주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과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미리-정해진, 그리고 유란시아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적인 삶, 모형이 되는 생애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간 주체가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미리-결정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 존재도 이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의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모두 숙명의 주체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신성한 숙명을 받아들이도록 미리-정해진 것은 아니다; 너희는 생각 조절자 계획의 전부 또는 어떤 일부도 거부하는 충분한 해방에 놓여 있다. 너희가 기꺼이 그리고 지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개인성 방향성구현위에서 더욱 많은 영향력을 얻는 끝 지점까지 오게 한다면, 그러한 마음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영적 조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신성한 감시자들이 너희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의 선택과 결정에 임의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절자들은 너희의 개인성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들은 항상 너희의 의지에 굴종적이다.

그들은 그들이 일하는 방법에서 끈질기며, 창의적이며, 그리고 완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 주인의 의지적 자아신분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다. 어떤 인간 존재도 신성한 감시자에 의해 자신

divinely active concerning all the affairs of your eternal future.

110:1.5 (1204.3) The Adjuster remains with you in all disaster and through every sickness which does not wholly destroy the mentality. But how unkind knowingly to defile or otherwise deliberately to pollute the physical body, which must serve as the earthly tabernacle of this marvelous gift from God. All physical poisons greatly retard the efforts of the Adjuster to exalt the material mind, while the mental poisons of fear, anger, envy, jealousy, suspicion, and intolerance likewise tremendously interfere with the spiritual progress of the evolving soul.

110:1.6 (1204.4) Today you are passing through the period of the courtship of your Adjuster; and if you only prove faithful to the trust reposed in you by the divine spirit who seeks your mind and soul in eternal union, there will eventually ensue that morontia oneness, that supernal harmony, that cosmic co-ordination, that divine attunement, that celestial fusion, that never-ending blending of identity, that oneness of being which is so perfect and final that even the most experienced personalities can never segregate or recognize as separate identities the fusion partners — mortal man and divine Adjuster.

2. ADJUSTERS AND HUMAN WILL

110:2.1 (1204.5) When Thought Adjusters indwell human minds, they bring with them the model careers, the ideal lives, as determined and foreordained by themselves and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Divinington, which have been certified by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Urantia. Thus they begin work with a definite and predetermined plan for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their human subjects, but it is not incumbent upon any human being to accept this plan. You are all subjects of predestination, but it is not foreordained that you must accept this divine predestination; you are at full liberty to reject any part or all of the Thought Adjusters' program. It is their mission to effect such mind changes and to make such spiritual adjustments as you may willingly and intelligently authorize, to the end that they may gain more influence over the personality directionization; but under no circumstances do these divine Monitors ever take advantage of you or in any way arbitrarily influence you in your choices and decisions. The Adjusters respect your sovereignty of personality; *they are always subservient to your will.*

110:2.2 (1204.6) They are persistent, ingenious, and perfect in their methods of work, but they never do violence to the volitional selfhood of their hosts. No human being will ever be spiritualized by a divine Monitor against his will; survival is a gift of the

의 의지에 반하여 영성화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생존은 시간의 창조체가 원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조절자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의 협력하는 동의에 따라 변화가 성취되었음을 기록들이 보여줄 것이다; 상승하는 삶에서의 엄청난 변화의 매 단계마다 그 달성에서 너희는 조절자와 기꺼운 동반자가 되어갈 것이다.

조절자는 너희의 사고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영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천사나 조절자도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주도록 전념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의 배타적인 개인성 특권이다. 조절자들은 너희의 사고 과정을 증진시키고, 변형시키고, 조절하고, 그리고 조화-협동시키는 데 몰두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 특별하고 명백하게, 그들은 생존 하는 목적을 위하여, 너희 생애의 영적 부분, 너희의 참된 전진하는 자아의 모론시아 사본을 제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조절자들은 필사자 지능의 모든 개념의 모론시아 복제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인간 마음의 보다 높은 차원의 영역에서 일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 순환계는 그 위에서 부딪쳐 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서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 하나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 계획으로부터 진화되는 필사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별의 높은 구체들로부터 온 불멸의 실존개체, 하느님으로부터 온 내주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필사의 자아는 계다가 개인적 자아이다; 그것은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개인적 창조체로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다. 조절자는 전(前)개인적 창조체로서 전(前)마음과 전(前)의지를 갖고 있다. 만일에 너희가 눈에서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조절자의 마음에 충분하게 순응한다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조절자 마음의 보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뒤이어서, 만일 너희의 의지가 이 새로운 것, 병합된 마음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힘을 가한다면, 조절자의 전(前)개인적 의지는 너희의 결정을 통하여 개인성 표현에 달성할 것이며, 그리고 그 특정한 투사, 프로젝트에 관한 한, 너희와 조절자는 하나이다. 너희의 마음은 신성(神性) 조율에 달성한 것이며, 조절자의 의지는 개인성 표현을 성취한 것이다.

이 정체성이 실현되는 범위까지, 너희는 실존의 모론시아 계층에 정신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모론시아 마음은, 다양하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자연본성들의, 협동하는 마음 전체의 본질이 총합을 의미하는 하나의 용어이다. 그러므로 모론시아 지능은 지역우주 안에서 하나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원(二元)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필사자의 경우에, 기원에서의 인간적인 것, 인간 마음의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 작용으로 정체화구현을 거치면서 신성하게 되어 가는, 하나의 의지이다.

Gods which must be desired by the creatures of time. In the final analysis, whatever the Adjuster has succeeded in doing for you, the records will show that the transformation has been accomplished with your co-operative consent; you will have been a willing partner with the Adjuster in the attainment of every step of the tremendous transformation of the ascension career.

110:2.3 (1205.1) The Adjuster is not trying to control your thinking, as such, but rather to spiritualize it, to eternalize it. Neither angels nor Adjusters are devoted directly to influencing human thought; that is your exclusive personality prerogative. The Adjusters are dedicated to improving, modifying, adjusting, and co-ordinating your thinking processes; but more especially and specifically they are devoted to the work of building up spiritual counterparts of your careers, morontia transcripts of your true advancing selves, for survival purposes.

110:2.4 (1205.2) Adjusters work in the spheres of the higher levels of the human mind, unceasingly seeking to produce morontia duplicates of every concept of the mortal intellect. There are, therefore, two realities which impinge upon, and are centered in, the human mind circuits: one, a mortal self evolved from the original plans of the Life Carriers, the other, an immortal entity from the high spheres of Divinington, an indwelling gift from God. But the mortal self is also a personal self; it has personality.

110:2.5 (1205.3) You as a personal creature have mind and will. The Adjuster as a prepersonal creature has premind and prewill. If you so fully conform to the Adjuster's mind that you see eye to eye, then your minds become one, and you receive the reinforcement of the Adjuster's mind. Subsequently, if your will orders and enforces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s of this new or combined mind, the Adjuster's prepersonal will attains to personality expression through your decision, and as far as that particular project is concerned, you and the Adjuster are one. Your mind has attained to divinity attunement, and the Adjuster's will has achieved personality expression.

110:2.6 (1205.4) To the extent that this identity is realized, you are mentally approaching the morontia order of existence. Morontia mind is a term signifying the substance and sum total of the co-operating minds of diversely material and spiritual natures. Morontia intellect, therefore, connotes a dual mind in the local universe dominated by one will. And with mortals this is a will, human in origin, which is becoming divine through man's identification of the human mind with the mindedness of God.

제 3 장. 조절자와의 협조

3. CO-OPERATION WITH THE ADJUSTER

조절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성하고 장엄한 경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공간 속에서 시간의 최극 모험들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원에서의 더 큰 과업들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에서의 너희의 짧은 투쟁에서 너희의 협동이 그들에게 협조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너희의 조절자가 너희와 교통하려고 시도할 때, 그 메시지는 인간 마음의 에너지 줄기의 물질적 흐름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며, 겨우 어찌다가 너희는 메아리, 신성한 음성의, 가냘프고 아득한 메아리만을 붙잡을 뿐이다.

필사자 삶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생존을 가져오는 활동사업에서, 너희의 조절자가 승리하는 것은, 너희 믿음에 대한 이론에 달려있기 보다는 너희의 결정, 결심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앙에 달려있다. 이들 모든 개인성 성장의 움직임은,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너희를 돕기 때문에, 너희의 전진을 돕는 힘찬 영향이 되어간다. 그들은 너희가 저항하는 것을 그치도록 도와준다. 조절자들은 필사자들이 완전성 달성의 상승하는 통로를 따라서 전진하도록 만든 기획을 협조하는 일에, 필사자들이 성공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에 따라서, 현세에 떠맡은 일에서 외견상으로 성공하든지 또는 실패한다. 생존의 비밀은 하느님과-같은 이 되고자 하는 최극의 인간 욕망 속에, 그리고 그 압도하는 욕망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그 어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되는 데 연관되어 있는 기꺼이 나섬에 감추어져 있다.

조절자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언급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생존이라는 말로써 이야기하게 된다. 조절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성한 본질요소이며, 그들은 그들이 떠맡은 각각의 일 속에서 항상 승리를 창발한다.

너희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삶의 사소한 일들에 소모하면서, 반면에 영속하는 의미의 더욱 본질적인 실체, 너희와 너희의 조절자들 사이에 더욱 조화되는 활동동의를 개발하는 데에 관련된 바로 그 성취들을, 너희가 거의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음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목표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신성에 조율하는 것이다; 필사자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너희 마음 안에서 기다리고 일하는 신성한 영의 영원한 표적들에 대한 참된 그리고 납득하는 헌납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단호한 노력은 명량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이며 명예를 받을 만한 이 땅에서의 삶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생각 조절자와 협력하는 것은 자아-고문, 짐짓 흉내 내는 경건함, 또는 위선적이고 허세부리는 자아-비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인 삶은 두려움에 찬 염려에서의 실존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이다.

혼동, 당황함, 때로는 심지어 낙심되고 갈피

110:3.1 (1205.5) Adjusters are playing the sacred and superb game of the ages; they are engaged in one of the supreme adventures of time in space. And how happy they are when your co-operation permits them to lend assistance in your short struggles of time as they continue to prosecute their larger tasks of eternity. But usually, when your Adjuster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you, the message is lost in the material currents of the energy streams of human mind; only occasionally do you catch an echo, a faint and distant echo, of the divine voice.

110:3.2 (1205.6) The success of your Adjuster in the enterprise of piloting you through the mortal life and bringing about your survival depends not so much on the theories of your beliefs as upon your decisions, determinations, and steadfast *faith*. All these movements of personality growth become powerful influences aiding in your advancement because they help you to co-operate with the Adjuster; they assist you in ceasing to resist. Thought Adjusters succeed or apparently fail in their terrestrial undertakings just in so far as mortals succeed or fail to co-operate with the scheme whereby they are to be advanced along the ascending path of perfection attainment. The secret of survival is wrapped up in the supreme human desire to be Godlike and in the associated willingness to do and be any and all things which are essential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at overmastering desire.

110:3.3 (1206.1) When we speak of an Adjuster's success or failure, we are speaking in terms of human survival. *Adjusters never fail*; they are of the divine essence, and they always emerge triumphant in each of their undertakings.

110:3.4 (1206.2) I cannot but observe that so many of you spend so much time and thought on mere trifles of living, while you almost wholly overlook the more essential realities of everlasting import, those very accomplishment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more harmonious working agreement between you and your Adjusters. The great goal of human existence is to attune to the divinity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great achievement of mortal life is the attainment of a true and understanding consecration to the eternal aims of the divine spirit who waits and works within your mind. But a devoted and determined effort to realize eternal destiny is wholly compatible with a lighthearted and joyous life and with a successful and honorable career on earth. Co-oper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does not entail self-torture, mock piety, or hypocritical and ostentatious self-abasement; the ideal life is one of loving service rather than an existence of fearful apprehension.

110:3.5 (1206.3) Confusion, being puzzled, even

를 못 잡게 되는 것조차, 반드시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저항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태도들이 때로는 신성한 감시자와의 활발한 협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보가 다소간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능적 감정적 어려움들은 하느님을 알고 있는 혼의 확실한 생존을 한 치라도 방해하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혼란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도 마찬가지다. 오직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하는 것만이 진화하는 불멸 혼의 생존을 막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조절자와의 협동이 특별한 의식적(意識的) 과정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동기 그리고 너의 결정, 너의 신실한 결심과 그리고 너의 최극의 욕망들은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협동을 이루고 있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절자와의 조화를 의식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수가 있다;

1. 신성한 인도에 응답하기로 선택하는 것;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의 가장 높은 의식 위에 인간 일생의 기초를 진지하게 두며, 그런 다음 이들 신성의 본질특성들을 지혜, 경배,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조화-협동시키는 것.

2.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신성한 아버지신분에 대한 진정한 인지와 천국의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경배.

3. 사람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그에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너의 동료 필사자 각자에 대하여 지적이며 현명한 애정으로 연결된 사람의 형제신분을 전심으로 인지하는 것.

4. 조화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최극존재에 대한 너희의 진보적 책무들을 정직하게 인지하는 것, 진화적 사람과 진화하고 있는 신(神)의 상호 의존성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조화우주 도덕의 탄생이며 우주적 의무에 대한 실현의 시작이다.

제 4 장. 마음 안에서의 조절자의 일

조절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주요 순환회로들을 타고 들어오는 조화우주 지능의 계속적인 흐름을 받아들이 수가 있다; 그들은 우주들의 에너지와 영적 지능에 충분히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막강한 내주자들은 본성에서의 공통성이 부족하고 반응적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필사자 주체의 마음에게 이 지혜와 진리의 보화를 그렇게 많이 전해줄 수 없다.

생각 조절자는 너희의 모론시아 혼이 진화하기까지 그렇게 너희 마음을 영성화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에 몰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자신은 이러한 내적 사명활동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sometimes discouraged and distracted,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resistance to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Adjuster. Such attitudes may sometimes connote lack of active co-operation with the divine Monitor and may, therefore, somewhat delay spiritual progress, but such intellectual emotional difficulties do not in the least interfere with the certain survival of the God-knowing soul. Ignorance alone can never prevent survival; neither can confusional doubts nor fearful uncertainty. Only conscious resistance to the Adjuster's leading can prevent the survival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110:3.6 (1206.4) You must not regard co-operation with your Adjuster as a particularly conscious process, for it is not; but your motives and your decisions, your faithful determinations and your supreme desires, do constitute real and effective co-operation. You can consciously augment Adjuster harmony by:

110:3.7 (1206.5) 1. Choosing to respond to divine leading; sincerely basing the human life on the highest consciousnes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then co-ordinating these qualities of divinity through wisdom, worship, faith, and love.

110:3.8 (1206.6) 2. Loving God and desiring to be like him — genuine recognition of the divine fatherhood and loving worship of the heavenly Parent.

110:3.9 (1206.7) 3. Loving man and sincerely desiring to serve him — wholehearted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coupled with an intelligent and wise affection for each of your fellow mortals.

110:3.10 (1206.8) 4. Joyful acceptance of cosmic citizenship — honest recognition of your progressive obligations to the Supreme Being, awareness of the interdependence of evolutionary man and evolving Deity. This is the birth of cosmic morality and the dawning realization of universal duty.

4. THE ADJUSTER'S WORK IN THE MIND

110:4.1 (1207.1) Adjusters are able to receive the continuous stream of cosmic intelligence coming in over the master circuits of time and space; they are in full touch with the spirit intelligence and energy of the universes. But these mighty indwellers are unable to transmit very much of this wealth of wisdom and truth to the minds of their mortal subjects because of the lack of commonness of nature and the absence of responsive recognition.

110:4.2 (1207.2) The Thought Adjuster is engaged in a constant effort so to spiritualize your mind as to evolve your morontia soul; but you yourself are mostly unconscious of this inner ministry. You are quite in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product of

너희에게는 너희 자신의 물질적 지능에서 나온 산물과, 너희 혼과 조절자의 공동 활동에서 나온 산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생각, 결론, 그리고 마음에서의 다른 그림들의 느닷없는 일부 특정한 현시들은 때때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절자가 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그것들은, 진화하는 동물적 마음 회로의 선천적인, 정상적이고 보통의 심리적 기능에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정신적 차원 안에서 함께 집단을 이루어 왔던 것들이, 관념의 의식 속으로 갑자기 창발하는 것이다. (이들 잠재의식적 표출과는 대조적으로, 조절자의 계시들은 초(超)의식의 영역을 통하여 나타난다.)

의식의 비활성 차원 저편 너머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조절자의 보호관리에 맡기고 맡겨라. 때가 되면, 이 세계에서가 아니라면 팬션세계에서, 그들은 그들 청지기관계의 좋은 평가서술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그들의 보호와 보관에 위탁되었던 저들 가치와 의미를 내 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생존한다면 필사 마음에서의 모든 가치 있는 보화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란시아의 종족들은 너무나 많이 전기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통제되고, 너무 심하게 그들의 보통 습성이 동물적이고, 평상시의 반응에서 너무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시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너희에게는 용기 있는 결정과 거룩하게 제공하는 협동이 너무 모자라서 너희에게 내주하는 조절자들은 인간 마음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있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에게 새로운 진리의 섬광을 번쩍 비춰줄 가능성을 발견한 때조차도, 이 영적 계시는 종종 창조체들의 눈을 멀게 하여 광신적인 격동(激動)에 빠지게 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다른 지적 격변을 일으킨다. 많은 새로운 종교들과 이상한 “주의(主義)”들이 생각 조절자들과의 발육 중단된, 불완전한, 잘못 납득된, 그리고 왜곡된 교통에서 생겨났다.

예루셈의 기록들이 보여주듯이, 수천 년 동안, 자아-행동하는 조절자들과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각 세대마다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것은 경고를 주는 광경이며, 그리고 사타니아를 감시하는 개인성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보다 높은 영적 유형을 육성하고 보존하도록 고안된 수단을 개시해 달라고 주창한 너희의 더욱 직계 행성 감시자의 일부 제안에 호의를 보였다.

제 5 장. 조절자의 인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

your own material intellect from that of the conjoint activities of your soul and the Adjuster.

110:4.3 (1207.3) Certain abrupt presentations of thoughts, conclusions, and other pictures of mind are sometimes the direct or indirect work of the Adjuster; but far more often they are the sudden emergence into consciousness of ideas which have been grouping themselves together in the submerged mental levels, natural and everyday occurrences of normal and ordinary psychic function inherent in the circuits of the evolving animal mind. (In contrast with these subconscious emanations, the revelations of the Adjuster appear through the realms of the superconscious.)

110:4.4 (1207.4) Trust all matters of mind beyond the dead level of consciousness to the custody of the Adjusters. In due time, if not in this world then on the mansion worlds, they will give good account of their stewardship, and eventually will they bring forth those meanings and values intrusted to their care and keeping. They will resurrect every worthy treasure of the mortal mind if you survive.

110:4.5 (1207.5) There exists a vast gulf between the human and the divine, between man and God. The Urantia races are so largely electrically and chemically controlled, so highly animallike in their common behavior, so emotional in their ordinary reactions, that it become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onitors to guide and direct them. You are so devoid of courageous decisions and consecrated co-operation that your indwelling Adjusters find it next to impossib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human mind. Even when they do find it possible to flash a gleam of new truth to the evolving mortal soul, this spiritual revelation often so blinds the creature as to precipitate a convulsion of fanaticism or to initiate some other intellectual upheaval which results disastrously. Many a new religion and strange “ism” has arisen from the aborted, imperfect, misunderstood, and garbled communications of the Thought Adjusters.

110:4.6 (1207.6) For many thousands of years, so the records of Jerusem show, in each generation there have lived fewer and fewer beings who could function safely with self-acting Adjusters. This is an alarming picture, and the supervising personalities of Satania look with favor upon the proposals of some of your more immediate planetary supervisors who advocate the inauguration of measures designed to foster and conserve the higher spiritual types of the Urantia races.

5. ERRONEOUS CONCEPTS OF ADJUSTER GUIDANCE

조절자의 임무와 작용을 흔히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양심은 인간적인 것이며 순전히 심리적인 반응이다. 양심이 경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조절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음성이 되어질 것이지만, 양심은 혼에게 주는 하느님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마땅히, 너희가 옳은 것을 행하도록 충고하지만, 그러나 조절자는 그 위에 덧붙여서 무엇이 진실로 옳은 지를 너희에게 말해주려고 애쓴다; 그것은 너희가 감시자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에 따를 수 있을 때의 것이다.

사람의 꿈 체험, 조화-협동되지-않은 잠자는 마음의 무질서하고 연결되지 않는 퍼레이드는 조절자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고 연관하려는 것에서 실패하였음을 제시하는 적절한 증거가 된다. 조절자들은 간단하게, 한번의 삶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으로서 그렇게 전혀 다르고 다양한 두개의 사고의 유형을 독단적으로 조화-협동시키고 동조시킬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혼들은 죽음의 체험을 지나서 통과할 필요 없이 맨션세계로 직접 옮겨지게 된다.

잠을 자는 시기동안, 조절자는 내주된 개인성의 의지가, 충분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충분히 승인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초(超)마음의 영역, 인간과 신성한 상호관계가 연락하는 권역에 머물기 시작하게 된, 바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의 필사자 주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절자들은 자신들의 창조들을 물질적 마음의 보다 높은 차원 안에 등록하려고 시도하며, 그리고 너희의 괴상한 꿈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들이 효과적인 접촉을 만드는 것에서 실패했음을 가리킨다. 꿈속 일생에서 겪는 불합리한 것들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압력을 증거할 뿐 아니라, 조절자들에 의해 제시된 영적 개념들의 표현을 끔찍하게 왜곡하였음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 너희 자신의 열정, 충동, 그리고 타고난 다른 성향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그림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잠 동안에 내주자들이 심적 기록 안에 넣어두려고 애쓰고 있는 신성한 메시지 대신에, 자신들의 표현되지 못한 욕망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꿈 일생의 내용을 조절자가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 조절자들이 잠자는 동안에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일상적인 꿈 체험들은 순전히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필사자 양심에서의 명령의 다소간 연속되고 그리고 의식되어 받은 것에서 조절자들이 등록한 개념을 구별해 내려고 시도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것들은 개별적 분간과 개인적 결정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필사자 마음에서의 반응을 신성한 존엄성의 영역으로 높여주는 큰 실책을 범하기보

110:5.1 (1207.7) Do not confuse and confound the mission and influence of the Adjuster with what is commonly called conscience;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Conscience is a human and purely psychic reaction. It is not to be despised, but it is hardly the voice of God to the soul, which indeed the Adjuster's would be if such a voice could be heard. Conscience, rightly, admonishes you to do right; but the Adjuster, in addition, endeavors to tell you what truly is right; that is, when and as you are able to perceive the Monitor's leading.

110:5.2 (1208.1) Man's dream experiences, that disordered and disconnected parade of the un-co-ordinated sleeping mind, present adequate proof of the failure of the Adjusters to harmonize and associate the divergent factors of the mind of man. The Adjusters simply cannot, in a single lifetime, arbitrarily co-ordinate and synchronize two such unlike and diverse types of thinking as the human and the divine. When they do, as they sometimes have, such souls are translated directly to the mansion worlds without the necessity of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death.

110:5.3 (1208.2) During the slumber season the Adjuster attempts to achieve only that which the will of the indwelt personality has previously fully approved by the decisions and choosings which were made during times of fully wakeful consciousness, and which have thereby become lodged in the realms of the supermind, the liaison domain of human and divine interrelationship.

110:5.4 (1208.3) While their mortal hosts are asleep, the Adjusters try to register their creations in the higher levels of the material mind, and some of your grotesque dreams indicate their failure to make efficient contact. The absurdities of dream life not only testify to pressure of unexpressed emotions but also bear witness to the horrible distortion of the representations of the spiritual concepts presented by the Adjusters. Your own passions, urges, and other innate tendencies translate themselves into the picture and substitute their unexpressed desires for the divine messages which the indwellers are endeavoring to put into the psychic records during unconscious sleep.

110:5.5 (1208.4) It is extremely dangerous to postulate as to the Adjuster content of the dream life. The Adjusters do work during sleep, but your ordinary dream experiences are purely physiologic and psychologic phenomena. Likewise, it is hazardous to attempt the differentiation of the Adjusters' concept registry from the more or less continuous and conscious reception of the dictations of mortal conscience. These are problems which will have to be solved through individual discrimination and personal decision. But a human being would do

다는,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 체험일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조절자의 표현을 거절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 조절자의 영향이, 비록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해도, 대부분이 초(超)의식적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정신 순환계들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리고 다양한 정도에서, 어떤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간접적으로, 너희의 조절자들과 교통한다.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개념들이 조절자의 가르침에서 온다는 관념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 너희 계층의 존재들에서는, 너희가 조절자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안에서, 너희 자신의 지능으로부터 방출된 것일 경우가 더욱 많다. 이것은 위험한 근거이며, 그리고 모든 인간 존재들은 그 자신을 위한 이들 문제를 자신의 자연스러운 인간적 지혜와 초인간적 통찰력에 따라서 해결해야만 한다.

지금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에게 있는 조절자는 무척 넓은 범위의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이는 주로 조절자의 내적 현존의 모든 외향적 현시활동에 대한, 이 인간의 거의 완벽한 무관심 때문이다; 그가 전체 과정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여전히 매우 초연하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그는 그의 시대와 세대에서 고도로 체험된 조절자층의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다재다능한 조절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현존하는 것과 연관된 현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대하여 소극적인데, 운명 수호자에 의해 뜻밖의 보기 드문 다행한 반응이라고 단언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영향력에서의 유리한 조화-협동을 이루며, 행동의 상급 구체안에서 조절자에게, 또한 건강, 능력, 그리고 평온함의 입장에서 인간 동반자에게, 둘 모두에게 유익하다.

제 6 장. 일곱 정신 순환계

물질세계에서의 개인성 실현의 전체의 총합은 필사자 잠재성의 일곱 정신 순환계들에 대한 연속적인 정복 속에 담겨있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인간 개인성 기능의 시작을 표시한다. 첫 번째 순환계의 완료는 필사 존재의 상대적인 성숙을 나타낸다. 비록 조화우주 성장의 일곱 순환계들을 모두 통과하였다 해도 조절자와의 융합과 동등하지는 않으며, 이 순환계들의 정복은 조절자와 융합하기 위한 예비 단계를 달성하였음을 표시할 뿐이다.

조절자는 일곱 순환계들을 달성—비교적인 필사자 성숙의 성취—에서 너희와 동등한 동반자이다. 조절자는 너희와 함께 일곱 번째로부터 첫 번째로 순환계들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최극위의

better to err in rejecting an Adjuster's expression through believing it to be a purely human experience than to blunder into exalting a reaction of the mortal mind to the sphere of divine dignity. Remember, the influence of a Thought Adjuster is for the most part, though not wholly, a superconscious experience.

110:5.6 (1208.5) In varying degrees and increasingly as you ascend the psychic circles, sometimes directly, but more often indirectly, you do communicate with your Adjusters. But it is dangerous to entertain the idea that every new concept originating in the human mind is the dictation of the Adjuster. More often, in beings of your order, that which you accept as the Adjuster's voice is in reality the emanation of your own intellect. This is dangerous ground, and every human being must settle these problems for himself in accordance with his natural human wisdom and superhuman insight.

110:5.7 (1208.6) The Adjuster of the human being through whom this communication is being made enjoys such a wide scope of activity chiefly because of this human's almost complete indifference to any outward manifestations of the Adjuster's inner presence; it is indeed fortunate that he remains consciously quite unconcerned about the entire procedure. He holds one of the highly experienced Adjusters of his day and generation, and yet his passive reaction to, and inactive concern toward, the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in his mind of this versatile Adjuster is pronounced by the guardian of destiny to be a rare and fortuitous reaction. And all this constitutes a favorable co-ordination of influences, favorable both to the Adjuster in the higher sphere of action and to the human partner from the standpoints of health, efficiency, and tranquillity.

6. THE SEVEN PSYCHIC CIRCLES

110:6.1 (1209.1) The sum total of personality realization on a material world is contained within the successive conquest of the seven psychic circles of mortal potentiality. Entrance upon the seventh circle marks the beginning of true human personality function. Completion of the first circle denotes the relative maturity of the mortal being. Though the traversal of the seven circles of cosmic growth does not equal fusion with the Adjuster, the mastery of these circles marks the attainment of those steps which are preliminary to Adjuster fusion.

110:6.2 (1209.2) The Adjuster is your equal partner in the attainment of the seven circles — the achievement of comparative mortal maturity. The Adjuster ascends the circles with you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but progresses to the status of

지위나 그리고 자아-행동은 필사자 마음의 적극적인 협동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진보한다.

정신 순환계들은 배타적으로 지능적인 것은 아니며, 전적으로 모론시아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개인성 지위, 마음 달성, 혼 성숙, 그리고 조절자 조율과 함께 해야 한다. 이들 차원의 성공적인 횡단은 단순히 그에 대한 어느 한 위상이 아니라, 전체 개인성에서의 조화로운 기능 활동을 요구한다. 부분들의 성장은 전부의 참된 성숙과 동등하지는 않다, 부분들은 실제로 물질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전체 자아-전부인 자아-의 확대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지적 본성의 개발이 영적 본성의 개발보다 빨리 앞지를 때, 그러한 상황은 생각 조절자와의 교통을 어렵고 또 위험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영적 개발은 신성한 내주자의 영적 인도에 대하여 광신적이며 왜곡된 해석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 수용능력의 부족은, 상급 초(超)의식 안에 거주하는 영적 진리들을 그러한 물질적 지성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 빛과 진리의 최대의 것이 현세적 위험이나 손상의 최소의 것으로 그러한 존재의 실제 복지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평형의 마음, 육체 안에 머무르는 깨끗한 습관의 마음, 신경 에너지가 안정되어진 마음, 그리고 화학 기능이 균형 잡힌 마음-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힘이 발전에서의 삼원적 조화에 있을 때의 마음-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균형 잡힌 성장에 의해서 사람들은 일곱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진보의 순환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조절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에게 속해있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처럼, 그들이 직접 너희에게 이야기 할 수는 거의 없다. 너희의 지적 결정, 도덕적 선택, 그리고 영적 발전은 조절자가 너희 마음속에서 기능하도록 능력을 더해준다; 매 순환계마다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서, 조절자 관계적-연합과 마음 조율의 하급 단계로부터 상승하고, 그렇게 조절자는 이 하느님을-찾는 마음-혼의 진화하는 의식 위에, 더욱 생생함과 확신을 증강시키면서, 운명에 대한 그의 그림화 구현을 등록하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게 된다.

내가 내리는 결정마다 조절자의 기능을 방해하든지 또는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여러 결정은 인간 성취의 순환계들 안에서 너희의 향상을 좌우한다. 결정의 최극위, 그것의 위기와 관계가, 그것의 순환계를-만들어가는 작용과 크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빈도, 빈번한 반복, 끊임없는 반복들도 또한 그러한 반응들의 습관을-형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인간 진보의 일곱 차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들 차원들이 개인적이기 때문

supremacy and self-activity quite independent of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mortal mind.

110:6.3 (1209.3) The psychic circles are not exclusively intellectual, neither are they wholly morontial; they have to do with personality status, mind attainment, soul growth, and Adjuster attunement. The successful traversal of these levels demands the harmonious functioning of the *entire personality*, not merely of some one phase thereof. The growth of the parts does not equal the true maturation of the whole; the parts really grow in proportion to the expansion of the entire self — the whole self — materi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110:6.4 (1209.4) When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nature proceeds faster than that of the spiritual, such a situation renders communic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both difficult and dangerous. Likewise, overspiritual development tends to produce a fanatical and perverted interpretation of the spirit leadings of the divine indweller. Lack of spiritual capacity makes it very difficult to transmit to such a material intellect the spiritual truths resident in the higher superconsciousness. It is to the mind of perfect poise, housed in a body of clean habits, stabilized neural energies, and balanced chemical function — when th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powers are in triune harmony of development — that a maximum of light and truth can be imparted with a minimum of temporal danger or risk to the real welfare of such a being. By such a balanced growth does man ascend the circles of planetary progression one by one,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110:6.5 (1209.5) The Adjusters are always near you and of you, but rarely can they speak directly, as another being, to you. Circle by circle your intellectual decisions, moral choosings, and spiritual development add to the ability of the Adjuster to function in your mind; circle by circle you thereby ascend from the lower stages of Adjuster association and mind attunement, so that the Adjuster is increasingly enabled to register his picturizations of destiny with augmenting vividness and conviction upon the evolving consciousness of this God-seeking mind-soul.

110:6.6 (1210.1) Every decision you make either impedes or facilitates the function of the Adjuster; likewise do these very decisions determine your advancement in the circles of human achievement. It is true that the supremacy of a decision, its crisis relationship, has a great deal to do with its circle-making influence; nevertheless, numbers of decisions, frequent repetitions, persistent repetitions, are also essential to the habit-forming certainty of such reactions.

110:6.7 (1210.2) It is difficult precisely to define the seven levels of human progression, for the reason

이다; 그들은 각 개별존재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보기에는 각각의 인간 존재의 성장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조화우주 진화의 이들 차원에서의 정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반영된다:

1. 조절자 조율. 영으로 변화되는 마음은 순환계 달성에 비례하여 조절자 현존과 가까워진다.

2. 혼 진화. 모론시아 혼의 창발은 순환계 정복의 넓이와 깊이를 나타낸다.

3. 개인성 실체. 자아신분 실체의 정도는 순환계 정복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개인은 필사자 실존의 일곱 번째 차원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 상승하면서 점점 더 실제로 되어간다.

순환계들을 거쳐 가면서, 물질적 진화의 자녀들은 불멸 잠재성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있는 자들의 씨눈과 같은 본성의 그림자 같은 실체는 한 지역우주 시민의 창발하는 모론시아 본성에서의 더욱 맑은 현시활동으로 길을 내어주고 있다.

인간 성장의 일곱 차원들 또는 마음 순환계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편 성숙을 실현하는 이들 차원들의 최소와 최대 한계를 제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일곱 번째 순환계. 이 차원은 인간 존재가 개인적 선택, 개별적 결정, 도덕적 책임의 힘과 그리고 영적 개별존재성을 달성할 수용능력을 개발하였을 때,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지혜의 영의 지도 아래에서 일곱 보조 마음-영의 연합된 기능을 나타내며, 성령의 영향 안에 필사 창조체가 휩싸이고,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필사 마음속에 생각 조절자를 받아들임과 함께 하게 되는, 진리의 영의 첫 번째 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곱 번째 순환계에 들어가는 것은 필사의 창조체가 지역우주의 진정으로 잠재 시민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 순환계. 조절자의 일은 인간 상승자가 세 번째 순환계를 획득하고 개인적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를 받아들인 후에 훨씬 더 효력적이다. 조절자와 세라핌천사 수호자 사이에 겉으로는 아무런 노력의 협동이 없지만, 그런데도 개인 수호천사의 배정에 뒤이어서 조화우주 성취와 영적 발전의 모든 위상들에서는 놓칠 수 없는 개선이 관찰되어 진다. 세 번째 순환계가 달성되면, 조절자는 필사의 삶의 남은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모론시아화 하려고, 남은 순환계들을 조성하려고, 자연적인 죽음이 독특한 동반자 관계를 분해하기 전에 신성하고-인간적 관계적-연합의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that these levels are personal; they are variable for each individual and are apparently determined by the growth capacity of each human being. The conquest of these levels of cosmic evolution is reflected in three ways:

110:6.8 (1210.3) 1. *Adjuster attunement.* The spiritizing mind nears the Adjuster presence proportional to circle attainment.

110:6.9 (1210.4) 2. *Soul evolution.* The emergence of the morontia soul indicates the extent and depth of circle mastery.

110:6.10 (1210.5) 3. *Personality reality.* The degree of selfhood reality is directly determined by circle conquest. Persons become more real as they ascend from the seventh to the first level of mortal existence.

110:6.11 (1210.6) As the circles are traversed, the child of material evolution is growing into the mature human of immortal potentiality. The shadowy reality of the embryonic nature of a seventh circler is giving way to the clearer manifestation of the emerging morontia nature of a local universe citizen.

110:6.12 (1210.7) While it is impossible precisely to define the seven levels, or psychic circles, of human growth, it is permissible to suggest the minimum and maximum limits of these stages of maturity realization:

110:6.13 (1210.8) *The seventh circle.* This level is entered when human beings develop the powers of personal choice, individual decision,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capacity for the attainment of spiritual individuality. This signifies the united func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spirit of wisdom, the encirclement of the mortal creature in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and, on Urantia, the first functioning of the Spirit of Truth, together with the reception of a Thought Adjuster in the mortal mind. Entrance upon the seventh circle constitutes a mortal creature a truly potential citizen of the local universe.

110:6.14 (1210.9) *The third circle.* The Adjuster's work is much more effective after the human ascender attains the third circle and receives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of destiny. While there is no apparent concert of effort between the Adjuster and the seraphic guardian, nonetheless there is to be observed an unmistakable improvement in all phases of cosmic achievement and spiritual development subsequent to the assignment of the personal seraphic attendant. When the third circle is attained, the Adjuster endeavors to morontiaize the mind of man during the remainder of the mortal life span, to make the remaining circles, and achieve the final stage of the divine-human association before natural death dissolves the unique partnership.

첫 번째 순환계. 조절자는 너희가 진보적인 필사자 성취의 첫 번째와 최종 순환계를 달성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차원은 물질적 몸체의 의복으로부터 진보하는 모론시아 혼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 인간 체험 속에서 마음-조절자 관계의 가능한 최고의 실현을 나타낸다. 마음, 감정 그리고 조화우주 통찰력에 관하여, 첫 번째 정신적 순환계의 달성은 인간 체험에서 물질 마음과 영 조절자가 가능한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아마도 필사자 진보의 이 정신적 순환계들은 조화우주 차원-진화하는 혼과 창발하는 최극존재의 초기 관계의 모론시아 의식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의 실제 의미 파악과 가치 실현—으로 표현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의의(意義)를 물질적 마음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이다. 이들 순환계 달성들은 오직 하느님을-의식함과 상대적으로 관련된다. 일곱 번째나 여섯 번째 순환자들은 두 번째나 첫 번째 순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느님을-알고 있는—자녀신분을 의식하고 있는—데에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순환계 존재들은 최극존재에 대한 체험적 관계, 우주 시민권을 매우 적게 의식한다. 이들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달성은, 만약에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그러한 성취에서 실패하면, 맨션세계에서 상승자의 체험의 한 부분이 되어 갈 것이다.

신앙의 동기부여가 사람의 하느님과 의 아들 신분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 실현을 체험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행동, 결정의 완성은 최극존재의 조화우주 실재성으로서 점진적인 친족관계의 의식을 진화적으로 달성해 가는 데에 필수 요소가 된다. 믿음은 영적 세계 속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변환시키지만, 최극자의 유한 영역 안에서는 오직 선택-체험의 실현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잠재적인 것이 실재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개인성 활동 안에서 물질적 결정에 영적 신앙을 합치게 하며, 이로써 하느님에-굶주린 자의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지렛대가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하도록 신성하며 영적인 지레 받침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물질적 영적 기체들의 현명한 조화-협동은 최극자의 조화우주 실현과 파라다이스 신들에 대한 모론시아의 이해 둘 모두를 엄청나게 증강시킨다.

조화우주 순환계들의 정복은 모론시아 혼의 양적인 성장, 최극 의미들의 이해와 관계된다. 그러나 이 불멸의 혼의 질적인 지위는 필사 사람이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파라다이스의-잠재적인, 사실-가치위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순환자는 두 번째나 또는 심지어 첫 번째 순환자와 마찬가지로 조화우주 성장의 양적 실현을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맨션세계로 진행해 가는 것이다.

110:6.15 (1210.10) *The first circle.* The Adjuster cannot, ordinarily, speak directly and immediately with you until you attain the first and final circle of progressive mortal achievement. This level represents the highest possible realization of mind-Adjuster relationship in the human experience prior to the liberation of the evolving morontia soul from the habiliments of the material body. Concerning mind, emotions, and cosmic insight, this achievement of the first psychic circle is the nearest possible approach of material mind and spirit Adjuster in human experience.

110:6.16 (1211.1) Perhaps these psychic circles of mortal progression would be better denominated *cosmic levels* — actual meaning grasps and value realizations of progressive approach to the morontia consciousness of initial relationship of the evolutionary soul with the emerging Supreme Being. And it is this very relationship that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ully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cosmic circles to the material mind. These circle attainments are only relatively related to God-consciousness. A seventh or sixth circler can be almost as truly God-knowing — sonship conscious — as a second or first circler, but such lower circle beings are far less conscious of experiential relation to the Supreme Being, universe citizenship. The attainment of these cosmic circles will become a part of the ascenders' experience on the mansion worlds if they fail of such achievement before natural death.

110:6.17 (1211.2) The motivation of faith makes experiential the full realization of man's sonship with God, but *action*, completion of decisions, is essential to the evolutionary attainment of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kinship with the *cosmic actuality* of the Supreme Being. Faith transmutes potentials to actuals in the spiritual world, but potentials become actuals in the finite realms of the Supreme only by an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hoice-experience. But choosing to do the will of God joins spiritual faith to material decisions in personality action and thus supplies a divine and spiritual fulcrum for the mor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human and material leverage of God-hunger. Such a wise co-ordination of material and spiritual forces greatly augments both cosmic realization of the Supreme and morontia comprehension of the Paradise Deities.

110:6.18 (1211.3) The mastery of the cosmic circles is relat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morontia soul, the comprehension of supreme meanings. But the qualitative status of this immortal soul is *wholly* dependent on the grasp of living faith upon the Paradise-potential fact-value that mortal man is a son of the eternal God. Therefore does a seventh circler go on to the mansion worlds to attain further quantitative realization of cosmic growth just as does a second or even a first circler.

조화우주-순환계 달성과 실제적인 영적이고 종교적인 체험 사이에는 오직 간접적인 관계만이 있으며, 그러한 달성들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하다. 순전히 영적인 발전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거의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순환계 달성은 언제나 인간적 성공에서의 잠재와 필사자 성취를 증강시킨다.

일곱 번째 순환계로부터 세 번째까지는 모론시아 차원의 체험에 대한 확대된 안내를 예비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삶의 기능구조에서의 실체 의존으로부터 필사자의 마음을 단념시키는 임무 안에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활동이 증가되고 통합되는 것이 발생된다. 세 번째 순환계 이후로부터는 보조자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일곱 개의 순환계들은 가장 높은 순전히 동물적인 차원으로부터, 개인성 체험인, 자아-의식함에서의 가장 낮은 실제 접촉적인 모론시아 차원까지 확장되는, 필사의 체험을 포용한다. 첫 번째 조화우주 순환계의 정복은 이전(以前)-모론시아 필사 성숙의 달성을 의미하며 그리고 인간의 개인성 속에서 마음 활동의 배타적인 영향으로써 보조 마음-영들의 공동 사명활동의 종결을 나타낸다. 첫 번째 순환계를 지나면, 마음은 진화에서의 모론시아 단계의 지능, 조화우주 마음의 공동 사명활동 그리고 지역우주의 창조 영의 초(超)보조 자질에 점점 더 동족이 되어간다.

조절자들의 개별적 생애에서 중대한 날들은, 첫째로, 인간 주체가 세 번째 정신적 순환계를 돌파하고 감시자의 자아-행동과 기능에서의 증가된 범위를 (만일 내주자가 이미 자아-행동하지 않았다면) 보장하게 될 때이다; 다음은, 인간 동반자가 첫 번째 정신적 순환계를 달성하고, 그리하여 상호 교통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 때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융합된 때이다.

제 7 장. 불멸성의 달성

일곱 조화우주 순환계를 성취하는 것이 조절자와의 융합과 동등한 것은 아니다. 유란시아에는 자신들의 순환계들을 달성해 온 많은 필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융합은 여전히, 생각 조절자 안에 거주하는 것인 하느님의 뜻에, 필사자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조율을 이루고 그 위에서, 또 다른 더욱 위대하고 더욱 숭고한 영적 성취에 달려있다.

인간 존재가 조화우주 성취의 순환계들을 완료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사자 의지의 최종적인 선택이, 조절자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과 진화적이고 육체적 삶을 사는 동안의 모론시아 혼과의 관계적-연합을 완료하도록 허용하면, 혼과

110:6.19 (1211.4) There is only an indirect relation between cosmic-circle attainment and actual spiritual religious experience; such attainments are reciprocal and therefore mutually beneficial. Purely spiritual development may have little to do with planetary material prosperity, but circle attainment always augments the potential of human success and mortal achievement.

110:6.20 (1211.5) From the seventh to the third circle there occurs increased and unified action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in the task of weaning the mortal mind from its dependence on the realities of the material life mechanisms preparatory to increased introduction to morontia levels of experience. From the third circle onward the adjutant influence progressively diminishes.

110:6.21 (1211.6) The seven circles embrace mortal experience extending from the highest purely animal level to the lowest actual contactual morontia level of self-consciousness as a personality experience. The mastery of the first cosmic circle signalizes the attainment of premorontia mortal maturity and marks the termination of the conjoint ministry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s an exclusive influence of mind action in the human personality. Beyond the first circle, mind becomes increasingly akin to the intelligence of the morontia stage of evolution, the conjoined ministry of the cosmic mind and the superadjutant endowment of the Creative Spirit of a local universe.

110:6.22 (1212.1) The great days in the individual careers of Adjusters are: first, when the human subject breaks through into the third psychic circle, thus insuring the Monitor's self-activity and increased range of function (provided the indweller was not already self-acting); then, when the human partner attains the first psychic circle, and they are thereby enabled to intercommunicate, at least to some degree; and last, when they are finally and eternally fused.

7. THE ATTAINMENT OF IMMORTALITY

110:7.1 (1212.2) The achievement of the seven cosmic circles does not equal Adjuster fusion. There are many mortals living on Urantia who have attained their circles; but fusion depends on yet other greater and more sublime spiritual achievements, upon the attainment of a final and complete attunement of the mortal will with the will of God as it is resident in the Thought Adjuster.

110:7.2 (1212.3) When a human being has completed the circles of cosmic achievement, and further, when the final choosing of the mortal will permits the Adjuster to complete the association of human identity with the morontial soul during evolutionary

조절자의 그러한 완성된 연락은 독립적으로 맨션 세계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조절자와 모론시아 혼의 즉각적인 융합을 준비하는 유버사로부터의 명령이 하달된다. 육체적인 삶 동안에 이 융합이 일어나면 물질 육체는 순식간에 소멸되는데,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단지 옮겨지는 필사자가 “불 수레 속으로” 사라졌음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유란시아로부터 그들의 주체를 옮기어 온 대부분의 조절자들은 고도로 체험된 존재이며 다른 구체에서 많은 필사자들에게 내주하였던 기록을 갖고 있다. 조절자들이 빌려주는 계층의 행성에서 값진 내주하는 체험을 획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절자들이 오직 생존되지 못하는 필사자 주체들 안에서의 진보적인 일에 대한 체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필사자와의 융합에 뒤 이어서 조절자들은 너희의 운명과 체험을 공유한다, 그들은 바로 너다. 불멸의 모론시아 혼과 연관된 조절자가 융합된 후에, 한 존재의 가치의 모든 것과 체험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존재의 소유가 되어, 그렇게 그들은 실재적으로 하나의 실존개체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속한다. 모든 것, 그것은 한 때 생존되는 혼 속에서 인간이었으며 그리고 모든 것,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나-상승하는 새로운 우주 개인성을 실재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는 조절자 안에서, 체험적으로 신성하다. 그러나 각 우주 차원에서, 조절자는 그 차원에서 오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저들 속성으로만 새로운 창조체에 자질로서 부여할 수 있다. 신성한 감시자와의 절대적 하나 됨, 한 조절자에게 주어진 자질의 완벽한 소모는, 우주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이들 신성한 선물의 언제까지나 근원을 최종적으로 달성한 후, 뒤이어지는 영원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진화하는 혼과 신성한 조절자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융합되면, 각자는 서로의 체험 가능한 본질특성들을 모두 얻게 된다. 이 조화-협동된 개인성이, 한때 조상이 되었던 필사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후에는 모론시아 혼속에 있었던, 생존자의 모든 체험된 기억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에 더하여 그로부터 이 잠재적 최종자는 필사자 안에 내주하였던 전 기간에 걸쳐서 조절자가 가졌던, 모든 체험적 기억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나 신성한 감시자가 과거의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가져온 의미와 가치들을 개인성 동반자에게 언제까지나 완벽하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데에는 미래의 영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에게 있어서 조절자는 죽음에 이르러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하며, 창발하는 혼이 너희의 물질적인 실존 계층 속에 선천적인 에너지 원형들과 화학적 기체의 거의 완벽한 지배로부터

and physical life, then do such consummated liaisons of soul and Adjuster go on independently to the mansion worlds, and there is issued the mandate from Uversa which provides for the immediate fusion of the Adjuster and the morontial soul. This fusion during physical life instantly consumes the material body; the human beings who might witness such a spectacle would only observe the translating mortal disappear “in chariots of fire.”

110:7.3 (1212.4) Most Adjusters who have translated their subjects from Urantia were highly experienced and of record as previous indwellers of numerous mortals on other spheres. Remember, Adjusters gain valuable indwelling experience on planets of the loan order; it does not follow that Adjusters only gain experience for advanced work in those mortal subjects who fail to survive.

110:7.4 (1212.5) Subsequent to mortal fusion the Adjusters share your destiny and experience; *they are you*. After the fusion of the immortal morontia soul and the associated Adjuster, all of the experience and all of the values of the one eventually become the possession of the other, so that the two are actually one entity. In a certain sense, this new being is of the eternal past as well as for the eternal future. All that was once human in the surviving soul and all that is experientially divine in the Adjuster now become the actual possession of the new and ever-ascending universe personality. But on each universe level the Adjuster can endow the new creature only with those attributes which are meaningful and of value on that level. An absolute *oneness* with the divine Monitor, a complete exhaustion of the endowment of an Adjuster, can only be achieved in eternity subsequent to the final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Father of spirits, ever the source of these divine gifts.

110:7.5 (1212.6) When the evolving soul and the divine Adjuster are finally and eternally fused, each gains all of the experiential qualities of the other. This co-ordinate personality possesses all of the experiential memory of survival once held by the ancestral mortal mind and then resident in the morontia soul, and in addition thereto this potential finaliter embraces all the experiential memory of the Adjuster throughout the mortal indwellings of all time. But it will require an eternity of the future for an Adjuster ever completely to endow the personality partnership with the meanings and values which the divine Monitor carries forward from the eternity of the past.

110:7.6 (1213.1) But with the vast majority of Urantians the Adjuster must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death deliverance; must await the liberation of the emerging soul from the well-nigh complete domination of the energy patterns and chemical

자유롭게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조절자와 접촉하는 데에서 너희가 체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이러한 선천적인 매우 물질적 자연본성에서 기인한다. 것처럼 극소수의 필사자가 실제 사색가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신성한 조절자와 순조로운 연락을 이룰 정도까지 너희 마음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단련하지 않고 있다.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앞으로 나아오는 사랑의 우주 방송이 보내는 다채로운 메시지들에서 조절자가 번역해주는, 영적 탄원에 대하여 인간 마음의 귀는 거의 멀어 있다. 조절자는, 너희의 물리적인 본성 속에 선천적인 화학적 전기적 기세에 의해 그토록 완벽하게 지배되는 동물적인 마음 안에, 영감을 주는 이들 영 인도들을 등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조절자들은 필사자 마음과 접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향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물적 저항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와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없는, 여러 해에 걸친 침묵의 체재 기간에 두루, 참지 않으면 안된다. 봉사의 정도에서 생각 조절자가 더욱 높이 상승할수록, 그들은 더욱 효과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맨션세계에서 너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마주하고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동정심 가득히, 그리고 넘치게 표현되는 애정으로 너희에게 인사할 수는 없다.

필사자 삶 동안에는 물질적인 육체와 마음이 너희를 너희 조절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한다, 죽음에 뒤 이어서 영원한 융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너희와 조절자는 하나이며—너희는 분리된 존재로 구별 할 수가 없다.—그리하여 그곳에서는 너희가 납득하는 것 같은, 교통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절자의 음성이 언제나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 대부분은 평생 동안에 거의 그것을 듣는 일은 드물 것이다. 달성에서의 세 번째와 두 번째 순환계보다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는 최극 욕망의 순간에서, 최극의 상황 에서, 그리고 최극 결정에 따른 결과에서를 제외하고는, 조절자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일은 드물다.

운명 예비자들의 필사 마음과 행성 감독자들 사이의 접촉이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하는 동안에, 내주하는 조절자는 때때로 필사의 동반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 최근에 유란시아에서, 그러한 메시지가 자아-행동하는 조절자에 의해 운명예비무리단의 회원인 인간 연관-동료에게 전해졌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말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간절한 헌신을 받는 주체를 다치게 하거나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꾸짖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주는 나의 이 탄원을 기록하라.” 그리고 나서 아름답게 감동을 주며 하소연하는 훈계가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조절자는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가 더욱 충실하게 그의 진실한 협동을 나에게 보이고, 더욱 명랑하게 내가 놓아두는 과제를 견디고, 더욱 충실하게 내가 마련한 계획을 수행하고, 좀 더 참을성 있게 내가 선택한 시험을 견디고, 더욱 끈질기게 그리고 명랑하

forces inherent in your material order of existence. The chief difficulty you experience in contacting with your Adjusters consists in this very inherent material nature. So few mortals are real thinkers; you do not spiritually develop and discipline your minds to the point of favorable liaison with the divine Adjusters. The ear of the human mind is almost deaf to the spiritual pleas which the Adjuster translates from the manifold messages of the universal broadcasts of love proceeding from the Father of mercies. The Adjuster finds it almost impossible to register these inspiring spirit leadings in an animal mind so completely dominated by the chemical and electrical forces inherent in your physical natures.

110:7.7 (1213.2) Adjusters rejoice to make contact with the mortal mind; but they must be patient through the long years of silent sojourn during which they are unable to break through animal resistance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you. The higher the Thought Adjusters ascend in the scale of service, the more efficient they become. But never can they greet you, in the flesh, with the same full, sympathetic, and expressionful affection as they will when you discern them mind to mind on the mansion worlds.

110:7.8 (1213.3) During mortal life the material body and mind separate you from your Adjuster and prevent free communication; subsequent to death, after the eternal fusion, you and the Adjuster are one — you are not distinguishable as separate beings — and thus there exists no need for communication as you would understand it.

110:7.9 (1213.4) While the voice of the Adjuster is ever within you, most of you will hear it seldom during a lifetime. Human beings below the third and second circles of attainment rarely hear the Adjuster's direct voice except in moments of supreme desire, in a supreme situation, and consequent upon a supreme decision.

110:7.10 (1213.5) During the making and breaking of a contact between the mortal mind of a destiny reservist and the planetary supervisors, sometimes the indwelling Adjuster is so situated that it becomes possible to transmit a message to the mortal partner. Not long since, on Urantia, such a message was transmitted by a self-acting Adjuster to the human associate, a member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is message was introduced by these words: “And now, without injury or jeopardy to the subject of my solicitous devotion and without intent to overchastise or discourage, for me, make record of this my plea to him.” Then followed a beautifully touching and appealing admonition. Among other things, the Adjuster pleaded “that he more faithfully give me his sincere co-operation, more cheerfully endure the tasks of my emplacement, more faithfully carry out the program of my arrangement, more

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신용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내가 내주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의 훈계를 전하여라. 나는 그에게 최극의 헌신과 신성한 영의 애정을 주고 있노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주체에게 내가 끝나는 순간까지, 땅에서의 마지막 투쟁이 끝날 바로 그 때까지 지혜와 힘으로서 내가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라. 나는 나의 개인성이 신뢰하는 것에 충실할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나의 인내와 격렬한 투쟁에 대한 보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생존을 얻으라고 내가 훈계하노라. 우리의 개인성 성취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노라, 나는 이 인간 마음을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참을성 있게 상승시켜 왔고 내 부류의 우두머리에게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언을 받았노라. 순환계에서 순환계로 나는 심판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염려함이 없이, 기쁨으로 운명의 점호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하여 제시되었음]

patiently go through the trials of my selection, more persistently and cheerfully tread the path of my choosing, more humbly receive credit that may accrue as a result of my ceaseless endeavors — thus transmit my admonition to the man of my indwelling. Upon him I bestow the supreme devotion and affection of a divine spirit. And say further to my beloved subject that I will function with wisdom and power until the very end, until the last earth struggle is over; I will be true to my personality trust. And I exhort him to survival, not to disappoint me, not to deprive me of the reward of my patient and intense struggle. On the human will our achievement of personality depends. Circle by circle I have patiently ascended this human mind, and I have testimony that I am meeting the approval of the chief of my kind. Circle by circle I am passing on to judgment. I await with pleasure and without apprehension the roll call of destiny; I am prepared to submit all to the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110:7.11 (1214.1)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11 편 조절자와 혼

⇨ 110

유랜시아 책

112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1 편 조절자와 혼

섹션

소개

- 제 1 장. 선택의 마음 장(場)
- 제 2 장. 혼의 본성
- 제 3 장. 진화하는 혼
- 제 4 장. 내적인 일생
- 제 5 장. 선택의 헌정
- 제 6 장. 인간의 역설
- 제 7 장. 조절자가 부딪치는 문제

PAPER 111

THE ADJUSTER AND THE SOUL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Mind Arena of Choice
- 2. Nature of the Soul
- 3. The Evolving Soul
- 4. The Inner Life
- 5. The Consecration of Choice
- 6. The Human Paradox
- 7. The Adjuster's Problem

소개

인간 마음속에 신성한 조절자의 현존은, 과학이나 철학이 인간 개인성의 진화하는 혼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모론시아 혼은 우주의 자녀이며, 조화 우주 통찰력과 영적 발견에 의해서만 실제로 알려질 수 있다.

혼과 내주하는 영의 개념은 유란시아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성의 다양한 믿음 체계들 속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어 왔다. 동양의 많은 신앙과 서양의 어떤 신앙들은 사람은 유전성에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해왔다. 신(神)의 외적인 전제(全在)에 더하여 내적인 현존의 느낌은 유란시아의 많은 종교들의 한 부분을 오랫동안 형성하여 왔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삶의 짧은 기간을 넘어서서 지속하도록 운명되어진 생사에 관한 어떤 것, 인간 본성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어 왔다.

사람이 그의 진화하는 혼이 신성한 영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눈, 간, 콩팥, 심장, 그리고 나중에는 뇌와 같은 다른 물리적 기관 속에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INTRODUCTION

111:0.1 (1215.1) THE presence of the divine Adjuster in the human mind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either science or philosophy to attain a satisfactory comprehension of the evolving soul of the human personality. The morontia soul is the child of the universe and may be really known only through cosmic insight and spiritual discovery.

111:0.2 (1215.2) The concept of a soul and of an indwelling spirit is not new to Urantia; it has frequently appeared in the various systems of planetary beliefs. Many of the Oriental as well as some of the Occidental faiths have perceived that man is divine in heritage as well as human in inheritance. The feeling of the inner presence in addition to the external omnipresence of Deity has long formed a part of many Urantian religions. Men have long believed that there is something growing within the human nature, something vital that is destined to endure beyond the short span of temporal life.

111:0.3 (1215.3) Before man realized that his evolving soul was fathered by a divine spirit, it was thought to reside in different physical organs — the eye, liver, kidney, heart, and later, the brain. The savage

미개인은 혼을 피, 숨결, 그림자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연관하였다.

힌두교의 선생들은 대아(大我)의 개념에서 조절자의 현존과 본성의 평가에 실제적으로 접근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화하면서 잠재적인 불멸 혼의 공존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측면, 양(陽)과 음(陰), 혼과 영을 깨달았다. 이집트인들과 많은 아프리카 종족들도 두 요소들, 카와 바를 믿었다; 대개 혼은 선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졌으며, 영(靈)만이 선제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나일 계곡의 거주자들은 은총 받은 각 개별 존재는 태어날 때, 또는 그 후에 바로 그들이 카라고 부르는 보호 영이 증여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수호자 영이 필사의 주체와 일생동안 함께 남아있으며 그리고 그에 앞서 미래 신분상태로 옮겨간다고 가르쳤다. 아멘호텝 3세의 탄생을 묘사하는 룩소의 신전 벽에는 어린 왕자가 나일 신(神)의 팔위에 그려져 있고, 그의 곁에는 외모로는 왕자와 동일한 다른 아이가 있으며,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카라고 부르던 실존개체의 상징이다. 이 조각은 기원전 15세기에 완성된 것이다.

카는 연관된 필사의 혼을 일시적인 삶의 보다 나은 여정으로 안내하기 바라며, 더욱 특별하게는 내세에 인간 주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상급 영천재로 생각되었다. 이 시대의 이집트인이 죽게 되면, 그의 카가 거대한 강의 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처음에는 오직 왕들만이 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곧 모든 의인들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집트의 어느 지배자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카를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것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그것의 안내를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크게 번영하였고, 그것이 나에게 행하도록 한 것에 때문에 성공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카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의 신탁”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가슴의 즐거움으로 영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진화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모든 종족은 혼의 개념에 해당하는 말을 갖고 있다. 많은 원시 민족들은 혼이 인간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고 믿었으며, 그러므로 악한 눈의 악의를 겁을 먹으며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다”라고 믿어왔다. 릭-베다는 “나의 마음이 나의 가슴에 이야기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 1 장. 선택의 마음 장(場)

조절자들의 일이 본성에서 영적이라 할지라

associated the soul with blood, breath, shadows and with reflections of the self in water.

111:0.4 (1215.4) In the conception of the *atman* the Hindu teachers really approximated an appreciation of the nature and presence of the Adjuster, but they failed to distinguish the copresence of the evolving and potentially immortal soul. The Chinese, however, recognized two aspects of a human being, the *yang* and the *yin*, the soul and the spirit. The Egyptians and many African tribes also believed in two factors, the *ka* and the *ba*; the soul was not usually believed to be pre-existent, only the spirit.

111:0.5 (1215.5) The inhabitants of the Nile valley believed that each favored individual had bestowed upon him at birth, or soon thereafter, a protecting spirit which they called the *ka*. They taught that this guardian spirit remained with the mortal subject throughout life and passed before him into the future estate. On the walls of a temple at Luxor, where is depicted the birth of Amenhotep III, the little prince is pictured on the arm of the Nile god, and near him is another child, in appearance identical with the prince, which is a symbol of that entity which the Egyptians called the *ka*. This sculpture was completed in the fifteenth century before Christ.

111:0.6 (1215.6) The *ka* was thought to be a superior spirit genius which desired to guide the associated mortal soul into the better paths of temporal living but more especially to influence the fortunes of the human subject in the hereafter. When an Egyptian of this period died, it was expected that his *ka* would be waiting for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Great River. At first, only kings were supposed to have *kas*, but presently all righteous men were believed to possess them. One Egyptian ruler, speaking of the *ka* within his heart, said: “I did not disregard its speech; I feared to transgress its guidance. I prospered thereby greatly; I was thus successful by reason of that which it caused me to do; I was distinguished by its guidance.” Many believed that the *ka* was “an oracle from God in everybody.” Many believed that they were to “spend eternity in gladness of heart in the favor of the God that is in you.”

111:0.7 (1216.1) Every race of evolving Urantia mortals has a word equivalent to the concept of soul. Many primitive peoples believed the soul looked out upon the world through human eyes; therefore did they so cravenly fear the malevolence of the evil eye. They have long believed that “the spirit of man is the lamp of the Lord.” The Rig-Veda says: “My mind speaks to my heart.”

1. THE MIND ARENA OF CHOICE

111:1.1 (1216.2) Though the work of Adjusters is

도, 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적 기반 위에서 그들의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마음은 영 감시자가 내주하는 개인성의 협조로 모론시아 혼을 그것으로부터 진화시켜야만 하는 인간 토양이다.

우주들의 우주의 여러 마음 차원들에는 조화 우주 합일이 있다. 마치 성운이 우주 공간의 조화 우주 에너지에서 기원되는 것처럼, 지적 자아들은 조화우주 마음에 그 기원을 가진다. 지적 자아들의 인간적 (나중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영 진화의 잠재가 우세적으로 되어 가는데, 이는 필사자 마음의 동의에 따라서, 인간 개인성의 영적 자질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러한 인간 자아 속에 있는 절대 가치의 실존개체-점(點)의 창조적 현존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마음의 영 통치는 두 가지의 체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마음은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진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물질적 (개인적) 자아는 진화적이고 잠재적인 불멸 영인 모론시아 자아의 창조와 육성에, 내주하는 조절자와의 협조를 선택해야만 한다.

물질적인 마음은, 그 안에서 인간 개인성들이 살과, 자아-의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느님을 선택하거나 저버리며, 스스로를 영원하게 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경기장이다.

물질적인 진화는 너희에게 생명 메커니즘, 몸체를 제공해 왔다; 아버지 자신은 우주에 알려진 가장 순수한 영 실체인 생각 조절자를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해 왔다. 그러나 너희 손 안에는, 너희 자신의 결정에 종속되는, 마음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혹은 죽는 것은 마음에 따른 것이다. 너희가 조절자와-같음을-이름, 곧 하느님과-같음을-이름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한, 바로 그러한 도덕적 결정들을 너희가 내리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필사자 마음은 물질적인 일생 동안에 사용하도록 인간 존재에게 대여된 일시적 지성 체계이며, 그들이 이 마음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실존의 잠재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한다. 마음은 너희 의지에 종속되는 너희가 가진 우주실체의 거의 전부이다. 그리고 혼-모론시아 자아-은 필사의 자아가 내리고 있는 현세의 결정들이 거둔 수확을 신실히 묘사할 것이다. 인간 의식은 아래로는 전기-화학 기능구조 위에 부드럽게 놓여 있으며, 위로는 영-모론시아 에너지 체계에 섬세하게 닿아있다. 이 두 체계 중에 어떤 것도, 인간 존재는 그의 필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는 마음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보다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갈망하는가 하는 그것이 생존을 보장한다; 마음이 무엇을 닮았는가 하는 것보다 마음이 무엇을 닮으려고 분투하는가 하는 것이 영(靈) 정체화구현을 이룬다. 사람이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하느님을 동경한다는 그것이 우주에서 상승으로 귀착된다. 너

spiritual in nature, they must, perforce, do all their work upon an intellectual foundation. Mind is the human soil from which the spirit Monitor must evolve the morontia soul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dwelt personality.

111:1.2 (1216.3) There is a cosmic unity in the several mind level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ntellectual selves have their origin in the cosmic mind much as nebulae take origin in the cosmic energies of universe space. On the human (hence personal) level of intellectual selves the potential of spirit evolution becomes dominant, with the assent of the mortal mind, because of the spiritual endowments of the human personality together with the creative presence of an entity-point of absolute value in such human selves. But such a spirit dominance of the material mind is conditioned upon two experiences: This mind must have evolved up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and the material (personal) self must choose to co-operate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in creating and fostering the morontia self, the evolutionary and potentially immortal soul.

111:1.3 (1216.4) Material mind is the arena in which human personalities live, are self-conscious, make decisions, choose God or forsake him, eternalize or destroy themselves.

111:1.4 (1216.5) Material evolution has provided you a life machine, your body; the Father himself has endowed you with the purest spirit reality known in the universe, your Thought Adjuster. But into your hands, subject to your own decisions, has been given mind, and it is by mind that you live or die. It is within this mind and with this mind that you make those moral decisions which enable you to achieve Adjusterlikeness, and that is Godlikeness.

111:1.5 (1216.6) Mortal mind is a temporary intellect system loaned to human beings for use during a material lifetime, and as they use this mind, they are either accepting or rejecting the potential of eternal existence. Mind is about all you have of universe reality that is subject to your will, and the soul — the morontia self — will faithfully portray the harvest of the temporal decisions which the mortal self is making. Human consciousness rests gently upon the electrochemical mechanism below and delicately touches the spirit-morontia energy system above. Of neither of these two systems is the human being ever completely conscious in his mortal life; therefore must he work in mind, of which he is conscious. And it is not so much what mind comprehends as what mind desires to comprehend that insures survival; it is not so much what mind is like as what mind is striving to be like that constitutes spirit identification. It is not so much that man is conscious of God as that man yearns for God that

희가 오늘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매일 매일 그리고 영원 속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음은 조화우주 악기이며, 그 위에서 인간 의지는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 바로 그 인간 의지는 하느님 정제 화구현에서의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원한 생존에서의 절묘한 곡조를 연주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사람에게 증여된 조절자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죄를 받아들이 여지도 없지만, 그러나 필사자 마음은, 인간 의지의 악용에서 나오는 죄-가득한 음모들과 그리고 인간 의지의 자아-추구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악하고 추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하느님을-아는 인간 존재의 영으로 조명된 의지에 따라서 고결하고 아름답고며 진실하며 선하게-정말로 위대하게-될 수 있다.

진화적인 마음은 그것이 조화우주 지능성의 두 극단(極端)—전적으로 기능구조화된 것과 온통 영성화된 것—위에 현시될 때만 충분히 안정되고 의존할 만하다. 순수한 기능구조적 통제와 참된 영 본성 사이에서의 지능적 극단 사이에는, 개인성 선택과 영(靈) 정제화구현에 각자의 안정과 평온함이 의존되는, 진화하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마음의 바로 그 거대한 집단들이 그 사이에 끼여 있다.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자신의 의지를 조절자에게 굴복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본성적인 필사자 마음에서의 욕구와 충동들이 그러한 어떤 인도와 의식 안에서 서로 다를 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협동적으로 조절자의 인도를 따르기를 선택하고 있다. 조절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조절자에게 사람의 의지는 최극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진화하는 인간 지능에서의 거의 무제한한 경기장에서 생각 조절과 성격 변환의 영적 목표들을 성취하려고 분투하면서, 인간 의지를 그렇게 여기며 또 존중한다.

마음은 너희의 배이고, 조절자는 너희의 선도자이며, 인간 의지는 선장이다. 필사의 배(船)의 주인은 상승하는 혼을 영원한 생존의 모론시아 항구로 안내하는 신성한 선도자를 믿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오직 이기심, 게으른 것, 그리고 악한 것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선도자의 안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자비를 거부한 악한 모래톱 위에, 죄를 포용한 바윗돌 위에 필사자의 생애가 난파되게 한다. 이 신실한 선도자는 너희의 동의에 따라서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지나 신성한 마음의 바로 그 근원으로, 나아가서는 조절자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 줄 것이다.

results in universe ascension. What you are today is not so important as what you are becoming day by day and in eternity.

111:1.6 (1217.1) Mind is the cosmic instrument on which the human will can play the discords of destruction, or upon which this same human will can bring forth the exquisite melodies of God identification and consequent eternal survival. The Adjuster bestowed upon man is, in the last analysis, impervious to evil and incapable of sin, but mortal mind can actually be twisted, distorted, and rendered evil and ugly by the sinful machinations of a perverse and self-seeking human will. Likewise can this mind be made noble, beautiful, true, and good — actually great —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illuminated will of a God-knowing human being.

111:1.7 (1217.2) Evolutionary mind is only fully stable and dependable when manifesting itself upon the two extremes of cosmic intellectuality — the wholly mechanized and the entirely spiritualized. Between the intellectual extremes of pure mechanical control and true spirit nature there intervenes that enormous group of evolving and ascending minds whose stability and tranquillity are dependent upon personality choice and spirit identification.

111:1.8 (1217.3) But man does not passively, slavishly, surrender his will to the Adjuster. Rather does he actively, positively, and co-operatively choose to follow the Adjuster's leading when and as such leading consciously differs from the desires and impulses of the natural mortal mind. The Adjusters manipulate but never dominate man's mind against his will; to the Adjusters the human will is supreme. And they so regard and respect it while they strive to achieve the spiritual goals of thought adjustment and character transformation in the almost limitless arena of the evolving human intellect.

111:1.9 (1217.4) Mind is your ship, the Adjuster is your pilot, the human will is captain. The master of the mortal vessel should have the wisdom to trust the divine pilot to guide the ascending soul into the morontia harbors of eternal survival. Only by selfishness, slothfulness, and sinfulness can the will of man reject the guidance of such a loving pilot and eventually wreck the mortal career upon the evil shoals of rejected mercy and upon the rocks of embraced sin. With your consent, this faithful pilot will safely carry you across the barriers of time and the handicaps of space to the very source of the divine mind and on beyond, even to the Paradise Father of Adjusters.

제 2 장. 혼의 본성

2. NATURE OF THE SOUL

조화우주 지능의 마음 기능에 두루, 마음의 전체성은 지적 기능의 부분들을 지배한다, 마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능적인 합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잘못 인도된 자아의 현명치 못한 행동들과 선택들에 의해 방해받고 지연될 때에도 어김없이 이 구성요소의 합일을 현시한다. 그리고 마음의 이 합일은 의지 존엄성과 상승 특권의 자아와의 관계적-연합에서의 모든 차원에서, 전혀 변함없이 영 조화-협동을 추구한다.

필사 사람의 물질적 마음은, 모론시아 천을 짜는, 그 위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가 불후의 가치와 신성한 의미—궁극적 운명과 끝남이 없는 생애의 생존하는 혼, 잠재적 최종자—의 우주 성격의 영 원형들에 실마리를 누벼가고 있는, 조화우주 베틀이다.

인간 개인성은, 물질적 몸으로 사는 삶에 의하여 기능적 관계 안에 함께 붙잡혀 있는, 영과 마음으로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러한 마음과 영의 이 기능관계는 마음과 영의 본질특성들 또는 속성들의 어떤 병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새롭고, 기원적이며,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원히 견디어 내는 독특한 우주 가치, 혼을 이룬다.

그러한 불멸 혼에서의 진화적 창조 안에는 두 요소가 아니라 세 요소가 있다. 모론시아 인간 혼의 이들 세 가지 선행자는:

1. 인간 마음과 거기에 선행하고 그 위에 부딪치는 모든 조화우주 영향들.

2. 이 인간 마음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그리고 그러한 절대 영성(靈性)의 단편 안에, 인간 삶 안에서 모든 연관되는 영적(靈的) 영향과 요소와 함께 하면서, 선천적으로 있는 모든 잠재들.

3. 물질적 마음과 신성한 영 사이의 관계, 이것은 그러한 관계적-연합에 기여하는 어떤 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독특한 관계의 실체는 물질적 또는 영적인 것도 아니다, 모론시아적인 것이다. 그것이 혼이다.

중도(中途) 창조체들은 사람의 이 진화하는 혼을 낮은 것, 즉 물질적 마음과 높은 것, 즉 조화우주 마음과 대비하여 중간-마음이라고 오랫동안 불려왔다. 이 중간-마음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론시아 현상이다. 그러한 모론시아 진화의 잠재는 마음에서의 두 우주적 충동 안에서 선천적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알고 창조자의 신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창조체의 유한 마음의 충동, 그리고 사람을 알고 창조체의 체험을 획득하고자 하는 창조자의 무한 마음의 충동이다.

불멸의 혼을 진화시키는 숭고한 활동행위는 필사자 마음이 우선 개인적이고 다음으로 초(超)

111:2.1 (1217.5) Throughout the mind functions of cosmic intelligence, the totality of mind is dominant over the parts of intellectual function. Mind, in its essence, is functional unity; therefore does mind never fail to manifest this constitutive unity, even when hampered and hindered by the unwise actions and choices of a misguided self. And this unity of mind invariably seeks for spirit co-ordination on all levels of its association with selves of will dignity and ascension prerogatives.

111:2.2 (1217.6) The material mind of mortal man is the cosmic loom that carries the morontia fabrics on whic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threads the spirit patterns of a universe character of enduring values and divine meanings — a surviving soul of ultimate destiny and unending career, a potential finaliter.

111:2.3 (1218.1) The human personality is identified with mind and spirit held together in functional relationship by life in a material body. This functioning relationship of such mind and spirit does not result in some combination of the qualities or attributes of mind and spirit but rather in an entirely new, original, and unique universe value of potentially eternal endurance, the *soul*.

111:2.4 (1218.2) There are three and not two factors in the evolutionary creation of such an immortal soul. These three antecedents of the morontia human soul are:

111:2.5 (1218.3) 1. *The human mind* and all cosmic influences antecedent thereto and impinging thereon.

111:2.6 (1218.4) 2. *The divine spirit* indwelling this human mind and all potentials inherent in such a fragment of absolute spirituality together with all associated spiritual influences and factors in human life.

111:2.7 (1218.5)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mind and divine spirit*, which connotes a value and carries a meaning not found in either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such an association. The reality of this unique relationship is neither material nor spiritual but morontial. It is the soul.

111:2.8 (1218.6) The midway creatures have long denominated this evolving soul of man the mid-mind in contradistinction to the lower or material mind and the higher or cosmic mind. This mid-mind is really a morontia phenomenon since it exists in the realm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potential of such a morontia evolution is inherent in the two universal urges of mind: the impulse of the finite mind of the creature to know God and attain the divinity of the Creator, and the impulse of the infinite mind of the Creator to know man and attain the *experience* of the creature.

111:2.9 (1218.7) This supernal transaction of evolving the immortal soul is made possible because the

동물적 실체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본성의 진화가 확실시되는 조화우주 사명활동의 초(超)물질적 자질을 소유하면, 그럼으로써 연관된 영적 사명활동들과 그리고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의 진정한 창조적 접촉이 발효한다.

그러한 인간 마음에서의 접촉적인 영성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혼의 점진적인 탄생이고, 하느님을 알리고 갈망하는 인간 의지로서 지배되는 보조마음의 공동자손이며, 모든 창조의 바로 그 하느님의 실재적 단편—신비 감시자-의 전반적-통제하에 있는 우주의 영적 기체들과 연락한 산물이다. 그리하여 자아의 물질적이고 필사인 실체가 물리적-생명 기능구조의 현세의 한계들을 초월하며, 자아신분의 연속을 위한 진화하는 매체 안에서의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정체화구현, 모론시아 그리고 불멸인 혼을 달성한다.

제 3 장. 진화하는 혼

필사자 마음의 오류들과 인간 행위의 실수들이, 창조체 의지의 동의와 함께, 내주하는 조절자에 의해 일단 시작된 그러한 모론시아 현상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혼의 진화를 현저하게 연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필사자 죽음 이전에 언제든지 동일한 물질적인 인간 의지는 그와 같은 선택을 취소하고 생존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생존 이후에도 상승하는 필사자는 여전히 영원한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특권을 가진다; 조절자와 융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진화하고 상승하는 창조체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조절자와의 융합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영원히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육신으로의 삶 동안, 진화하는 혼은 필사자 마음의 초물질적 결정을 강화할 수 있다. 혼은, 초물질이므로, 인간 체험의 물질 차원에서 자체의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하위-영(靈)인 혼은, 조절자와 같은, 신(神)의 어떤 영의 협조 없이는 모론시아 차원에서도 기능할 수 없다. 또는 혼은, 죽음이나 전환이 필사자 마음과의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그것이 분리할 때까지는, 연관 기능의 모론시아 혼에게 이 물질적 마음이 자유로이 그리고 기꺼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삶 동안, 결정-선택의 개인성 힘인 필사자의 의지는 물질적 마음 순환회로에 머무른다; 땅에서 필사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귀중한 선택의 힘을 지닌 이 자아는 창발하는 모론시아-혼 실존개체와 점차적으로 정체성 확인을 이루어 가게 된다; 죽음 후에 그리고 맨션세계에서의 부활 이후에, 인간 개인성은 모론시아 자아와 완벽

mortal mind is first personal and second is in contact with superanimal realities; it possesses a supermaterial endowment of cosmic ministry which insures the evolution of a moral nature capable of making moral decisions, thereby effecting a bona fide creative contact with the associated spiritual ministries and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11:2.10 (1218.8) The inevitable result of such a contactual spiritualization of the human mind is the gradual birth of a soul, the joint offspring of an adjutant mind dominated by a human will that craves to know God, working in liaison with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which are under the overcontrol of an actual fragment of the very God of all creation — the Mystery Monitor. And thus does the material and mortal reality of the self transcend the temporal limitations of the physical-life machine and attain a new expression and a new identification in the evolving vehicle for selfhood continuity, the morontia and immortal soul.

3. THE EVOLVING SOUL

111:3.1 (1218.9) The mistakes of mortal mind and the errors of human conduct may markedly delay the evolution of the soul, although they cannot inhibit such a morontia phenomenon when once it has been initiated by the indwelling Adjuster with the consent of the creature will. But at any time prior to mortal death this same material and human will is empowered to rescind such a choice and to reject survival. Even after survival the ascending mortal still retains this prerogative of choosing to reject eternal life; at any time before fusion with the Adjuster the evolving and ascending creature can choose to forsake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Fusion with the Adjuster signalizes the fact that the ascending mortal has eternally and unreservedly chosen to do the Father's will.

111:3.2 (1219.1) During the life in the flesh the evolving soul is enabled to reinforce the supermaterial decisions of the mortal mind. The soul, being supermaterial, does not of itself function on the material level of human experience. Neither can this subspiritual soul, without the collaboration of some spirit of Deity, such as the Adjuster, function above the morontia level. Neither does the soul make final decisions until death or translation divorces it from material association with the mortal mind except when and as this material mind delegates such authority freely and willingly to such a morontia soul of associated function. During life the mortal will, the personality power of decision-choice, is resident in the material mind circuits; as terrestrial mortal growth proceeds, this self, with its priceless powers of choice, becomes increasingly identified with the emerging morontia-

하게 정체성 확인된다. 그래서 혼은 개인성 정체성의 미래의 모론시아 매체의 새짝이다.

이 불멸의 혼은 처음에는 본성에서 전적으로 모론시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전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神)의 영들, 대개는 창조체의 마음에 그러한 창조적 현상을 시작하였던 일으켰던 바로 그 우주 아버지의 영들과의 융합 가치의 참된 영 차원으로, 변함없이 상승한다.

인간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 둘 모두는, 진화하는 혼의 현존과 그 차별적인 본성을—조절자는 전체적으로, 마음은 부분적으로 의식한다. 혼은 그 스스로의 진화적 성장에 비례하는, 연관된 정체성으로써 마음과 조절자 둘 모두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어간다. 혼은 인간 마음과 신성한 영(靈) 둘 모두의 본질특성들을 같이 가지지만, 그러나 영(靈) 통제와 신성한 통치가 증강되는 것을 향하여, 마음 곧 그것의 의미들이 참된 영 가치와 조화-협동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기능의 육성을 통하여 두루, 끈질기게 진화한다.

필사자 생애, 혼의 진화는 시험기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이다. 최극 가치들의 생존 안에서 신앙이 종교의 핵심이다; 진정한 종교적 체험은, 우주적 실체의 하나의 실현으로서, 최극 가치들과 조화우주 의미들을 연합하는 데에 있다.

마음은 양(量), 실체, 의미들을 안다. 그러나 본질—가치—은 느껴지는 것이다. 느끼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마음과 그리고 그에 연관된, 무엇인가를 실체로—만들어내는 것, 영의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창조이다.

사람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하느님-의식의 가치-실현으로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으로 충만되는 한, 그러한 결과의 존재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진화하는 혼속에 영원한 가치의 생존이 없다면, 필사자 실존은 의미가 없으며, 삶 자체는 하나의 비극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너희가 시간 속에서 시작한 것은—그것이 만약 완결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확실하게 영원 속에서 완결할 것이다.

제 4 장. 내적인 일생

인지(認知)는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적 느낌을 개별존재의 기억 원형들에 맞추는 지적 과정이다. 납득은 이 인지된 감각적 느낌과 그들의 연관된 기억 원형들이 집대성되고 있다는, 즉 원칙의 역동적 계통 안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soul entity; after death and following the mansion world resurrection, the human personality is completely identified with the morontia self. The soul is thus the embryo of the future morontia vehicle of personality identity.

111:3.3 (1219.2) This immortal soul is at first wholly morontia in nature, but it possesses such a capacity for development that it invariably ascends to the true spirit levels of fusion value with the spirits of Deity, usually with the sam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that initiated such a creative phenomenon in the creature mind.

111:3.4 (1219.3) Both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are conscious of the presence and differential nature of the evolving soul — the Adjuster fully, the mind partially. The soul becomes increasingly conscious of both the mind and the Adjuster as associated identities, proportional to its own evolutionary growth. The soul partakes of the qualities of both the human mind and the divine spirit but persistently evolves toward augmentation of spirit control and divine dominance through the fostering of a mind function whose meanings seek to co-ordinate with true spirit value.

111:3.5 (1219.4) The mortal career, the soul's evolution, is not so much a probation as an education. Faith in the survival of supreme values is the core of religion;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consists in the union of supreme values and cosmic meanings as a realization of universal reality.

111:3.6 (1219.5) Mind knows quantity, reality, meanings. But quality — values — is *felt*. That which feels is the mutual creation of mind, which knows, and the associated spirit, which reality-izes.

111:3.7 (1219.6) In so far as man's evolving morontia soul becomes permeated by truth, beauty, and goodness as the value-realization of God-consciousness, such a resultant being becomes indestructible. If there is no survival of eternal values in the evolving soul of man, then mortal existence is without meaning, and life itself is a tragic illusion. But it is forever true: What you begin in time you will assuredly finish in eternity — if it is worth finishing.

4. THE INNER LIFE

111:4.1 (1219.7) Recognition is the intellectual process of fitting the sensory impressions received from the external world into the memory patterns of the individual. Understanding connotes that these recognized sensory impressions and their associated memory patterns have become integrated or organized into a dynamic network of principles.

의미들은 인지와 납득의 병합에서 유래된다. 의미들은 전적으로 감각적 또는 물질적인 세계에는 실존하지 않는다. 의미들과 가치들은 오직 인간 체험의 내적 또는 초물질적 영역에서만 감지된다.

참된 문명의 진보들은 모두 인류의 이 내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참으로 창조적인 것은 오직 내적인 삶뿐이다. 문명은 어떤 세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흥미와 에너지를 감각적 또는 외적 세계의 물질가치적인 추구에 쏟을 때에는 거의 진보하지 못한다.

내적 그리고 외적 세계들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갖는다. 어떤 문명도 그 젊은이들의 4분의 3이 물질가치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외적 세계의 감각적인 활동의 추구에 자신들을 몰두하게 할 때에는 위태롭게 된다. 젊은이들이 윤리학, 사회학, 철학, 순수 예술, 종교 그리고 우주론 등에 흥미를 두지 않을 때 문명은 위험에 봉착한다.

인간 체험의 영적 영역에 부딪침에 따른. 오로지 초의식적 마음의 높은 차원에서만, 너희는 보다 낮고 보다 영구적인 문명의 건설에 기여할 효과적인 주(主) 원형들과 관계적-연합하여, 저들 높은 개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성은 선천적으로 창조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처럼 오직 개별존재의 내적 삶 속에서만 기능한다.

눈(雪)의 결정체들은 항상 6각형의 형태를 갖지만 어떤 것도 서로 똑같지 않다. 자녀들이 유형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느 두 아이도, 쌍둥이인 경우일지라도 똑같지 않다. 개인성도 유형을 따라가지만 항상 독특하다.

행복과 즐거움은 내적인 삶에서 기인한다. 너희는 너희 혼자서는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없다. 자기 혼자 지내는 삶은 행복에 치명적이다. 가족이나 국가들조차도 그들이 그것을 남들과 나눌 때 삶을 더욱 즐길 수 있다.

너희는 외적 세계—환경—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너희의 지도에 가장 복종적인 것은 내적 세계의 창조성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너희의 개인성이 선재하는 원인성 법칙에서의 족쇄로부터 그렇게 크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의지의 제한된 주권이 개인성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의 이 내적 삶이 참으로 창조적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이 창조성이 자연발생적이고 전혀 우연한 것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통제되고, 지도되고, 건설적인 것으로 되게 하든지 그에 따른 선택의 책임이 주어진다. 그것이 기능하는 무대 위에 선입관, 미움, 두려움, 분노, 복수심, 편협한 신앙들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창조적인 상상력이 어떻게 훌륭한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겠는가?

관념은 외부 세계의 자극 안에서 기인한다,

111:4.2 (1220.1) Meanings are derived from a combination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Meanings are nonexistent in a wholly sensory or material world. Meanings and values are only perceived in the inner or supermaterial spheres of human experience.

111:4.3 (1220.2) The advances of true civilization are all born in this inner world of mankind. It is only the inner life that is truly creative. Civilization can hardly progress when the majority of the youth of any generation devote their interests and energies to the materialistic pursuits of the sensory or outer world.

111:4.4 (1220.3) The inner and the outer worlds have a different set of values. Any civilization is in jeopardy when three quarters of its youth enter materialistic professions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pursuit of the sensory activities of the outer world. Civilization is in danger when youth neglect to interest themselves in ethics, sociology, eugenics, philosophy, the fine arts, religion, and cosmology.

111:4.5 (1220.4) Only in the higher levels of the superconscious mind as it impinges upon the spirit realm of human experience can you find those higher concepts in association with effective master pattern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better and more enduring civilization. Personality is inherently creative, but it thus functions only in the inner life of the individual.

111:4.6 (1220.5) Snow crystals are always hexagonal in form, but no two are ever alike. Children conform to types, but no two are exactly alike, even in the case of twins. Personality follows types but is always unique.

111:4.7 (1220.6) Happiness and joy take origin in the inner life. You cannot experience real joy all by yourself. A solitary life is fatal to happiness. Even families and nations will enjoy life more if they share it with others.

111:4.8 (1220.7) You cannot completely control the external world — environment. It is the creativity of the inner world that is most subject to your direction because there your personality is so largely liberated from the fetters of the laws of antecedent causation. There i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a limited sovereignty of will.

111:4.9 (1220.8) Since this inner life of man is truly creative, there rests upon each person the responsibility of choosing as to whether this creativity shall be spontaneous and wholly haphazard or controlled, directed, and constructive. How can a creative imagination produce worthy children when the stage whereon it functions is already preoccupied by prejudice, hate, fears, resentments, revenge, and bigotries?

111:4.10 (1220.9) Ideas may take origin in the stimuli of

그러나 이상은 오직 내적 세계의 창조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은 많은 관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그들은 이상에 있어서는 빈곤에-시달린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가난, 이혼, 전쟁, 종족적 증오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만일 자유의지 사람이 내적 사람 속에 창조성의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 창조성이 자유의지 파괴성의 가능성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 너희는 죄와 악-억압, 전쟁, 그리고 파괴-의 참상과 직면한다. 악은 집대성-해체와 결국 생겨난 파괴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창조성에서의 편파성이다. 모든 다름은 그것이 내적 삶의 창조적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하다-그것은 개인성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의 일종(一種)이다

내적 창조성은 개인성 집대성활동과 자아신분 통일을 통하여 성격이 고귀하게 되도록 기여한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참이다.: 과거는 바뀔 수 없고; 오직 내적 자아의 현재 창조성의 사명활동에 의하여 미래만이 바뀔 수 있다.

the outer world, but ideals are born only in the creative realms of the inner world. Today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directed by men who have a superabundance of ideas, but they are poverty-stricken in ideals. That is the explanation of poverty, divorce, war, and racial hatreds.

111:4.11 (1220.10) This is the problem: If freewill man is endowed with the powers of creativity in the inner man, then must we recognize that freewill creativity embraces the potential of freewill destructivity. And when creativity is turned to destructivity, you are face to face with the devastation of evil and sin — oppression, war, and destruction. Evil is a partiality of creativity which tends toward disintegration and eventual destruction. All conflict is evil in that it inhibits the creative function of the inner life — it is a species of civil war in the personality.

111:4.12 (1221.1) Inner creativity contributes to ennoblement of character through personality integration and selfhood unification. It is forever true: The past is unchangeable; only the future can be changed by the ministry of the present creativity of the inner self.

제 5 장. 선택의 헌정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적인 삶을 하느님-내적 의미-가치가 가능한 그러한 창조체의 삶을 만든 바로 그 하느님-과 기꺼이 나누겠다는 창조체의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누는 것은 하느님과-같음-신성한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과 나누시며, 그들은 다시, 모든 것들을 신성한 아들과 우주의 영 딸들과 차례로 나눈다.

하느님을 본받는 것이 완전성에 이르는 열쇠이다;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은 생존의 비밀이고 생존 안에서 완전성의 비밀이다.

필자자들은 하느님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도 필자자들 안에서 살기를 뜻하셨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에게 맡김에 따라, 그도-그리고 먼저-그 자신의 일부분을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맡기셨으며; 사람들 속에 살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람 속에 내주하도록 동의하였다.

이 삶에서의 평화, 죽음에서의 생존, 다음 삶에서의 완전성, 영원에서의 봉사-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체 개인성이 창조체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에 종속하기로 동의-선택-할 때 지금 (영 안에서) 바로 성취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신의 단편을 창조체 개인성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선택을 하셨다.

그러한 창조체의 선택은 의지의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헌정, 의지의 확대, 의지의 영화로움, 의지의 완전을 이룸이다; 그러한 선택은 창조체의 의지를 일시적 의의(意義)의 차원으로부터

5. THE CONSECRATION OF CHOICE

111:5.1 (1221.2)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n exhibition of creature willingness to share the inner life with God — with the very God who has made such a creature life of inner meaning-value possible. Sharing is Godlike — divine. God shares all with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while they, in turn, share all things with the divine Sons and spirit Daughters of the universes.

111:5.2 (1221.3) The imitation of God is the key to perfection; the doing of his will is the secret of survival and of perfection in survival.

111:5.3 (1221.4) Mortals live in God, and so God has willed to live in mortals. As men trust themselves to him, so has he — and first — trusted a part of himself to be with men; has consented to live in men and to indwell men subject to the human will.

111:5.4 (1221.5) Peace in this life, survival in death, perfection in the next life, service in eternity — all these are achieved (in spirit) now when the creature personality consents — chooses — to subject the creature will to the Father's will. And already has the Father chosen to make a fragment of himself subject to the will of the creature personality.

111:5.5 (1221.6) Such a creature choice is not a surrender of will. It is a consecration of will, an expansion of will, a glorification of will, a perfecting of will; and such choosing raises the creature will

창조체 아들의 개인성이 영 아버지의 개인성과 교제하는 보다 높은 상태로 올려준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이것은, 비록 창조체 아들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느님의 사실적 현존 앞에 실제적으로 서있기 전에 한 세월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 해도, 필사 사람이 영 아버지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창조체 의지의 부정에 있다기보다는—“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오히려 창조체의 적극적인 긍정에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느님을 선택한 아들은 곧 내주하는 하느님의 단편과 내적 연합(융합)을 발견하며, 한편으로는 바로 이 완전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아들은 사람의 개인성과 조물주의 개인성이 경배하는 교제, 두 개인성이 그들의 창조적 속성들을 표현을 통한 자아-의지적인 상호성—사람의 뜻과 하느님의 뜻의 또 다른 영원한 동반자관계의 탄생—안에서 영원하게 합치고 있는 경배하는 교제 안에서, 최종 개인성 만족을 발견할 것이다.

제 6 장. 인간의 역설

필사 사람의 많은 일시적 고난들은 조화우주에 대한 그의 이중 관계에서 받아된다. 사람은 자연본능의 일부이다—그는 자연본능 안에서 존재한다—그럼에도 자연본능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에게 무한의 불꽃이 내주되어 있다. 그러한 이원(二元)적 상황은 악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적지 않은 불안을 내포하는 많은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상황을 야기한다.

자연본능의 정복을 달성하고 자신의 자아의 초월하는데 필요한 용기는 자아-자부심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 용기이다.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필사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을 신(神)화 하는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다. 필사자 딜레마는 그가 자연본능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독특한 해방—영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을 소유하고 있다는 2중 사실에 있다.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는 자연본능에 예속된 자신을 발견하며, 반면에 영적 차원에서는 자연본능과 모든 일시적이며 유한적인 것들에 대하여 승리한다. 그러한 역설은 유혹, 잠재적 악, 결정에 따르는 실수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자아가 의기양양해지고 오만해질 때, 죄는 진화할 수 있다.

죄의 문제는 유한 세계 안에서 자아-실존적인 것이 아니다. 유한하다는 사실은 악이 아니며 또는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유한 세계는 무한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그것은 그의 신성한 아들들의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다. 유한한 것의 오용, 왜곡, 곡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과 죄에 기원을 일으킨다.

영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은

from the level of temporal significance to that higher estate wherein the personality of the creature son communes with the personality of the spirit Father.

111:5.6 (1221.7) This choosing of the Father's will is the spiritual finding of the spirit Father by mortal man, even though an age must pass before the creature son may actually stand in the factual presence of God on Paradise. This choosing does not so much consist in the negation of creature will —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 as it consists in the creature's positive affirmation: “It is my will that your will be done.” And if this choice is made, sooner or later will the God-choosing son find inner union (fusion) with the indwelling God fragment, while this same perfecting son will find supreme personality satisfaction in the worship communion of the personality of man and the personality of his Maker, two personalities whose creative attributes have eternally joined in self-willed mutuality of expression — the birth of another eternal partnership of the will of man and the will of God.

6. THE HUMAN PARADOX

111:6.1 (1221.8) Many of the temporal troubles of mortal man grow out of his twofold relation to the cosmos. Man is a part of nature — he exists in nature — and yet he is able to transcend nature. Man is finite, but he is indwelt by a spark of infinity. Such a dual situation not only provides the potential for evil but also engenders many social and moral situations fraught with much uncertainty and not a little anxiety.

111:6.2 (1222.1) The courage required to effect the conquest of nature and to transcend one's self is a courage that might succumb to the temptations of self-pride. The mortal who can transcend self might yield to the temptation to deify his own self-consciousness. The mortal dilemma consists in the double fact that man is in bondage to nature while at the same time he possesses a unique liberty — freedom of spiritual choice and action. On material levels man finds himself subservient to nature, while on spiritual levels he is triumphant over nature and over all things temporal and finite. Such a paradox is inseparable from temptation, potential evil, decisional errors, and when self becomes proud and arrogant, sin may evolve.

111:6.3 (1222.2) The problem of sin is not self-existent in the finite world. The fact of finiteness is not evil or sinful. The finite world was made by an infinite Creator — it is the handiwork of his divine Sons — and therefore it must be good. It is the misus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the finite that gives origin to evil and sin.

111:6.4 (1222.3) The spirit can dominate mind; so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물리적 권역의 인과법칙의 수학적 차원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변형적 잠재들에 대한 자체적인 지능 조종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창조체 마음은 선천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神)의 특권이다. 그러나 창조체 마음은 물리적 우주의 에너지 비밀의 주인이 되어가는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사람이 물리적 실체를,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또는 환경이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통제와 에너지 지도의 수단과 방법을 그가 발견하는 정도까지 성공한다. 도움을 받지 않는 마음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연결된 그 자신의 물리적 기능구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물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몸체 기능구조의 지적 사용을 통하여, 마음은 다른 기능구조들을, 심지어는 에너지 관계와 삶의 관계들까지도 창조할 수 있는 데, 이는 이 마음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물리적 차원을 점점 크게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창조할 수 있다.

과학은 사실의 근원이며, 마음은 사실 없이는 작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혜라는 건축에서 삶의 체험에 의해 서로 접합되는 벽돌이다. 사람은 사실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가 신성한 법칙과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진화하는 조화우주 철학 속에 이것들을 체험적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만물을-포함하는 본성의 무한한 평형, 숭고한 조화, 절묘한 충만함을 결코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물질적 지식의 확대는 관념들의 의미와 이상들의 가치에 대한, 더욱 큰 지적인 올바른 이해를 마련해준다. 인간 존재는 그의 내적 체험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그의 개인적 발견을 일상생활의 냉혹한 실천적 요구들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필사 사람이, 그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자연 본능에 묶여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그가 일시적이며 유한한 모든 것들을 온통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전의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자연스러울 뿐이다. 오직 종교적인 자신감—살아있는 신앙—만이 그러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사람의 필사자 본성을 에워싸고 그의 영적 고결한-순수성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들 중에서도 자부심이 가장 크다. 용기는 씩씩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중심주의는 허영이며 그리고 자멸이다. 합당한 자아-확신은 개탄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그를 구별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자만은 개별존재, 단체, 종족, 국가의 어디에

mind can control energy. But mind can control energy only through its own intelligent manipulation of the metamorphic potentials inherent in the mathematical lev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physical domains. Creature mind does not inherently control energy; that is a Deity prerogative. But creature mind can and does manipulate energy just in so far as it has become master of the energy secrets of the physical universe.

111:6.5 (1222.4) When man wishes to modify physical reality, be it himself or his environment, he succeeds to the extent that he has discovered the ways and means of controlling matter and directing energy. Unaided mind is impotent to influence anything material save its own physical mechanism, with which it is inescapably linked. But through the intelligent use of the body mechanism, mind can create other mechanisms, even energy relationships and living relationships, by the utilization of which this mind can increasingly control and even dominate its physical level in the universe.

111:6.6 (1222.5) Science is the source of facts, and mind cannot operate without facts. They are the building blocks in the construction of wisdom which are cemented together by life experience. Man can find the love of God without facts, and man can discover the laws of God without love, but man can never begin to appreciate the infinite symmetry, the supernal harmony, the exquisite repleteness of the all-inclusive natur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until he has found divine law and divine love and has experientially unified these in his own evolving cosmic philosophy.

111:6.7 (1222.6) The expansion of material knowledge permits a greater intellectual appreciation of the meanings of ideas and the values of ideals. A human being can find truth in his inner experience, but he needs a clear knowledge of facts to apply his personal discovery of truth to the ruthlessly practical demands of everyday life.

111:6.8 (1222.7) It is only natural that mortal man should be harassed by feelings of insecurity as he views himself inextricably bound to nature while he possesses spiritual powers wholly transcendent to all things temporal and finite. Only religious confidence — living faith — can sustain man amid such difficult and perplexing problems.

111:6.9 (1223.1) Of all the dangers which beset man's mortal nature and jeopardize his spiritual integrity, pride is the greatest. Courage is valorous, but egotism is vainglorious and suicidal. Reasonable self-confidence is not to be deplored. Man's ability to transcend himself is the one thing which distinguishes him from the animal kingdom.

111:6.10 (1223.2) Pride is deceitful, intoxicating, and

서 발견 되든지 사람을 속이며, 도취시키며, 죄를-
낳는다. “자만은 몰락을 끌고 간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제 7 장. 조절자가 부딪치는 문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시간 안에서 그리고
마음 안에서의 불확실성,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상
승의 사건들에서 따라오는 불확실성—은 파라다
이스 모험의 본질이다; 영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
에서의 안전은,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성
한 연민에 대한 창조체 아들의 분별불가한 신뢰
안에서의 안전이다; 불확실성은 우주의 체험하지
못한 시민이기에 가지는 것이다; 안전은 만능이
신, 모든-지혜를 지닌, 모든-사랑을 베푸시는 아버
지의 우주 맨션들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아들이기
에 가지는 것이다.

너희의 혼을 향한 조절자의 신실한 부름의 아
득한 메아리에 귀 기울이라고 너희에게 충고하여
도 되겠는가? 내주하는 조절자는 시간에서의 너
희 생애에 걸친 투쟁을 중지시킬 수도 없고 더구
나 물질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 조절자는 너희가
이 고역의 세계를 두루 지나며 여행하는 데에 따
른 삶의 고초들을 덜어줄 수도 없다. 신성한 내주
자는 너희 행성에서 살게 되면서 그에 따라 너희
가 삶의 전쟁터에서 싸워가는 동안 오직 참아내면
서 견딜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허용하려고
만 한다면—너희가 수고하고 걱정하는 대로, 너희
가 싸우고 고초를 겪는 대로—너희는 용맹스런 조
절자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도
록 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조절자에게 실제적인
동기, 최종적 목표, 그리고 너희의 제시되어 있는
물질적 세계의 평범한 문제들과의 이 모든 어렵고
벽찬 투쟁의 영원한 목적의 그림을 끊임없이 떠올
리도록 단지 허용만 하면, 너희는 너무나도 위안
받고 영감 받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매료되고 흥미
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이들 모든 격렬한 물질적 노
력에서의 영적 상대자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과업
을 떠고 있는 조절자를 돕고 있지 않는 것인가? 어
째서 너희는 너희가 창조체 실존의 일시적 어려움
과 씨름하는 동안, 조절자에게 조화우주 힘의 영
적 진리로서 너희를 강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너희는 지나가고 있는 시간
에서의 문제들을 뒤엎힘 속에서 뻔히 보면서도,
우주적 삶의 영원한 조망에서의 명백한 시각으로
너희를 복돋우려는 천상의 조력자를 격려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어째서 너희는 너희가 시간의
장애물 한복판에서 수고하고 너희 필사자 삶의 여
정을 에워싸고 있는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허우적
거리면서도, 우주 관점으로 깨우쳐지고 영감을 받
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가? 비록 너희의 발은
땅에서 노력하는, 물질의 길을 밟지 않으면 안된
다 할지라도, 어째서 조절자가 너희의 생각을 영
성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유란시아의 상급 인간 종족들은 복잡하게 섞
여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여러 종족
과 혈통으로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적인 본성

sin-breeding whether found in an individual, a
group, a race, or a nation. It is literally true, “Pride
goes before a fall.”

7. THE ADJUSTER'S PROBLEM

111:7.1 (1223.3) Uncertainty with security is the
essence of the Paradise adventure — uncertainty
in time and in mind, uncertainty as to the events of
the unfolding Paradise ascent; security in spirit
and in eternity, security in the unqualified trust of
the creature son in the divine compassion and
infinite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uncertainty as
an inexperienced citizen of the universe; security
as an ascending son in the universe mansions of
an all-powerful, all-wise, and all-loving Father.

111:7.2 (1223.4) May I admonish you to heed the
distant echo of the Adjuster's faithful call to your
soul? The indwelling Adjuster cannot stop or even
materially alter your career struggle of time; the
Adjuster cannot lessen the hardships of life as you
journey on through this world of toil. The divine
indweller can only patiently forbear while you fight
the battle of life as it is lived on your planet; but you
could, if you only would — as you work and worry,
as you fight and toil — permit the valiant Adjuster
to fight with you and for you. You could be so
comforted and inspired, so enthralled and
intrigued, if you would only allow the Adjuster
constantly to bring forth the pictures of the real
motive, the final aim, and the eternal purpose of all
this difficult, uphill struggle with the commonplace
problems of your present material world.

111:7.3 (1223.5) Why do you not aid the Adjuster in the
task of showing you the spiritual counterpart of all
these strenuous material efforts? Why do you not
allow the Adjuster to strengthen you with the
spiritual truths of cosmic power while you wrestle
with the temporal difficulties of creature existence?
Why do you not encourage the heavenly helper to
cheer you with the clear vision of the eternal
outlook of universal life as you gaze in perplexity at
the problems of the passing hour? Why do you
refuse to be enlightened and inspired by the
universe viewpoint while you toil amidst the
handicaps of time and flounder in the maze of
uncertainties which beset your mortal life journey?
Why not allow the Adjuster to spiritualize your
thinking, even though your feet must tread the
material paths of earthly endeavor?

111:7.4 (1223.6) The higher human races of Urantia
are complexly admixed; they are a blend of many
races and stocks of different origin. This

은 감시자들이 일생동안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에 지나칠 정도로 그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 조절자와 수호 세라핌천사들 모두의 문제들에도 확실히 어려움을 더한다. 얼마 전에 나는 구원자별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 운명 수호자가 그녀의 필사 주체에 대한 사명활동에서의 어려움에 정상참작을 바라며 제시하고 있는 공식 진술서를 들었다. 이 세라핌천사는 말했다:

“나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의 주체의 두 가지 본성들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다툼 때문이었다; 열망에서의 추진력은 동물적 게으름에 의하여 반대되고; 우월한 민족의 이상은 열등 종족의 본능으로 인하여 가로 막히고; 위대한 마음의 높은 목적들은 원시적 전승의 추진력에 의하여 적대시되고; 멀리-내다보는 감시자의 먼-거리 관점은 시공의 창조체가 지닌 근시안으로 인하여 반대로 작용되고; 상승하는 존재의 진보적인 계획들은 물질적 본성의 욕구와 갈망으로 인하여 변경되고; 우주 지능의 섬광들은 진화하는 종족의 화학-에너지 명령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천사들의 추진력은 동물의 감정으로 인하여 저지되고; 지성의 훈련은 본능의 성향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고; 개별존재의 체험은 종족의 누적된 성향으로 인하여 저지되고; 최선의 목표들은 최악의 대세로 인하여 그들에 가려지고; 천재의 비상(飛翔)은 평범의 중력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착한 것의 진보는 나쁜 것의 타성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아름다운 것의 예술은 악의 현존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건강의 부력은 질병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중화되고; 신앙의 샘은 두려움의 독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기쁨의 샘물은 슬픔의 물로 쓰디쓰게 되고; 예상의 기쁨은 실현된 것의 쓰라림으로 인하여 환멸을 느끼며; 삶의 즐거움이 죽음의 슬픔으로 인해 언제나 위협받으니. 그러한 행성에서 그러한 삶이니! 그런데도 생각 조절자의 언제까지나-현존하는 도움과 추진력 때문에, 이 혼은 행복과 성공에서의 적절한 등급을 성취하였으며, 이제 맨션계의 심판실로 상승해 왔다.”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composite nature renders it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Monitors to work efficiently during life and adds definitely to the problems of both the Adjuster and the guardian seraphim after death. Not long since I was present on Salvington and heard a guardian of destiny present a formal statement in extenuation of the difficulties of ministering to her mortal subject. This seraphim said:

111:7.5 (1223.7) “Much of my difficulty was due to the unending conflict between the two natures of my subject: the urge of ambition opposed by animal indolence; the ideals of a superior people crossed by the instincts of an inferior race; the high purposes of a great mind antagonized by the urge of a primitive inheritance; the long-distance view of a far-seeing Monitor counteracted by the nearsightedness of a creature of time; the progressive plans of an ascending being modified by the desires and longings of a material nature; the flashes of universe intelligence cancelled by the chemical-energy mandates of the evolving race; the urge of angels opposed by the emotions of an animal; the training of an intellect annulled by the tendencies of instinct; the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opposed by the accumulated propensities of the race; the aims of the best overshadowed by the drift of the worst; the flight of genius neutralized by the gravity of mediocrity; the progress of the good retarded by the inertia of the bad; the art of the beautiful besmirched by the presence of evil; the buoyancy of health neutralized by the debility of disease; the fountain of faith polluted by the poisons of fear; the spring of joy embittered by the waters of sorrow; the gladness of anticipation disillusioned by the bitterness of realization; the joys of living ever threatened by the sorrows of death. Such a life on such a planet! And yet, because of the ever-present help and urge of the Thought Adjuster, this soul did achieve a fair degree of happiness and success and has even now ascended to the judgment halls of mansonia.”

111:7.6 (1224.1)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12 편 개인성 생존

⇨ 111

유랜시아 책

113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2 편 개인성 생존

색션

소개

제 1 장. 개인성과 실체

제 2 장. 자아

제 3 장. 죽음의 현상

제 4 장. 죽음 이후의 조절자

제 5 장. 인간 자아의 생존

제 6 장. 모른시아 자아

제 7 장. 조절자 융합

PAPER 112

PERSONALITY SURVIVAL

SECTIONS

Introduction

1. Personality and Reality

2. The Self

3. The Phenomenon of Death

4. Adjusters after Death

5. Survival of the Human Self

6. The Morontia Self

7. Adjuster Fusion

소개

진화하는 행성들은 인간 기원의 구체이며,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가 시작되는 세계이다. 유랜시아는 너희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의 신성한 생각 조절자가 일시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너희에게는 완전한 안내자가 자질로서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시간의 경주를 진심으로 달려가고 신앙의 마지막 목표를 달성한다면, 세대의 보상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내주 하는 조절자와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실제 삶, 상승하는 삶이 시작되며, 그에 비하여 현재 너희의 필사자 상태는 단지 건물의 현관일 뿐이다. 그러면 너희 앞에 펼쳐있는 영원 속에서 최종자로서 너희의 고귀하며 진보적인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속적인 세대들에 두루 그리고 진화하는 성장의 모든 단계들에 있어서 너희의 전혀 변화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변화의 현존 속에서의 불변-개인성이다.

개인성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되겠지만, 개인성에 관하여 알려진 어떤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1.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 자신 또는 아버지로

INTRODUCTION

^{112:0.1 (1225.1)} THE evolutionary planets are the spheres of human origin, the initial worlds of the ascending mortal career. Urantia is your starting point; here you and your divine Thought Adjuster are joined in temporary union. You have been endowed with a perfect guide; therefore, if you will sincerely run the race of time and gain the final goal of faith, the reward of the ages shall be yours; you will be eternally united with your indwelling Adjuster. Then will begin your real life, the ascending life, to which your present mortal state is but the vestibule. Then will begin your exalted and progressive mission as finalizers in the eternity which stretches out before you. And throughout all of these successive ages and stages of evolutionary growth, there is one part of you that remains absolutely unaltered, and that is personality — permanence in the presence of change.

^{112:0.2 (1225.2)} While it would be presumptuous to attempt the definition of personality, it may prove helpful to recount some of the things which are known about personality:

^{112:0.3 (1225.3)} 1. Personality is that quality in reality

활동하는 공동 행위자에 의해 증여된 실체의 본질 특성이다.

2. 그것은 마음이나 영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증여될 수 있다.

3. 그것은 선제하는 원인성의 속박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적으로서 창조적 또는 공동-창조적이다

4. 진화하는 물질 창조체들에게 증여될 때, 그것은 영으로 하여금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에너지-물질의 통달을 위하여 분투하게 한다.

5. 개인성은, 한편으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동안에도,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다.

6. 중력에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 에너지들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오직 개인성 순환회로에 질적인 반응만을 나타낸다.

7. 개인성은 변화의 현존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8. 그것은 하느님께 선물-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자유 의지를 바치는 것-을 드릴 수가 있다.

9. 그것은 도덕성—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의 상대성을 인식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것은 행위 차원을 식별하며 그들 사이를 선택적으로 분간한다.

10. 개인성은 독특하고 또 절대적으로 독특하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독특하다; 그것은 영원과 파라다이스에서 독특하다; 증여될 때 독특하며—전혀 중복됨이 없다; 그것은 실존하는 순간마다 독특하다; 그것은 하느님과 관련하여 독특하다—하느님은 개인들을 차별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들을 함께 더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더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연관할 수 있을 뿐이고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11. 개인성은 다른-개인성 현존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12. 그것은 영에게 합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아들에 대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시원성을 설명한다. (마음은 영에게 합해지는 것이 없다.)

13. 개인성은 생존되는 혼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필사자 죽음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조절자와 개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혼속에서)변화하는 것, 계속되는 진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변화(성장)가 그치면, 혼도 그친다.

14. 개인성은 독특하게 시간을 인식하며, 이것은 마음이나 영의 시간 인지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which is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himself or by the Conjoint Actor, acting for the Father.

112:0.4 (1225.4) 2. It may be bestowed upon any living energy system which includes mind or spirit.

112:0.5 (1225.5) 3. It is not wholly subject to the fetters of antecedent causation. It is relatively creative or cocreative.

112:0.6 (1225.6) 4. When bestowed upon evolutionary material creatures, it causes spirit to strive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112:0.7 (1225.7) 5. Personality, while devoid of identity, can unify the identity of any living energy system.

112:0.8 (1225.8) 6. It discloses only qualitative response to the personality circuit in contradistinction to the three energies which show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ponse to gravity.

112:0.9 (1225.9) 7. Personality is changeless in the presence of change.

112:0.10 (1225.10) 8. It can make a gift to God — dedication of the free will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112:0.11 (1225.11) 9. It is characterized by morality — awareness of relativity of relationship with other persons. It discerns conduct levels and choosingly discriminates between them.

112:0.12 (1225.12) 10. Personality is unique, absolutely unique: It is unique in time and space; it is unique in eternity and on Paradise; it is unique when bestowed — there are no duplicates; it is unique during every moment of existence; it is unique in relation to God —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neither does he add them together, for they are nonaddable — they are associable but nontotalable.

112:0.13 (1226.1) 11. Personality responds directly to other-personality presence.

112:0.14 (1226.2) 12. It is one thing which can be added to spirit, thus illustrating the primacy of the Father in relation to the Son. (Mind does not have to be added to spirit.)

112:0.15 (1226.3) 13. Personality may survive mortal death with identity in the surviving soul. The Adjuster and the personality are chang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the soul) is nothing but change, continuing evolution; and if this change (growth) ceased, the soul would cease.

112:0.16 (1226.4) 14. Personality is uniquely conscious of time, and this is something other than the time perception of mind or spirit.

제 1 장. 개인성과 실체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잠재적인 영원한 자질로서 그의 창조체들에게 증여된다. 그러한 신성한 선물은 낮은 유한으로부터 가장 높은 아(亞)절대까지, 심지어는 절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차원들 그리고 연속되는 우주적 상황들 속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개인성은 세 개의 조화우주 수준 위에서 또는 세 개의 우주 위상 안에서 작용한다:

1. 자리 지위. 개인성은 지역우주, 초우주, 그리고 중앙우주 속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2. 의미 지위. 개인성은 유한의 차원, 아(亞)절대 차원,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와 마주 부딪치는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3. 가치 지위. 개인성은 물질적, 모른시아적, 그리고 영적인 진보(進歩) 세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개인성은 조화우주 규모상의 행위의 완전하게 된 범위를 갖는다. 유한 개인성의 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그들은 대략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길이는, 공간을 통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진화, 진보의 방향과 본성을 나타낸다

2. 수직의 깊이는 유기체적 본능과 태도들, 자아-실현의 다양한 차원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반응의 일반적 현상을 포용한다.

3. 폭은 조화-협동, 관계적-연합, 그리고 자아-신분 조직화의 권역을 포용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증여된 개인성 유형은 자아-표현 또는 개인-실현의 일곱 규모상의 잠재성을 갖는다. 이들 규모상의 현상은 유한 차원에서 셋으로, 아(亞)절대 차원에서 셋으로, 그리고 절대 차원에서 하나로 실현가능 하다. 하위-절대 차원들에서는 이 일곱 번째 또는 전체성 규모가 개인성의 사실로 체험될 수 있다. 이 최극 규모는 연관할 수 있는 절대이며, 무한하지는 않지만, 절대자의 하위-무한 침투를 위한 규모적으로 잠재적인 것이다.

개인성의 유한 규모들은 조화우주 길이, 깊이 그리고 폭과 관계를 가지며; 깊이는 가치를 의미하고; 폭은 통찰력—조화우주 실체의 도전할 수 없는 의식을 체험하는 능력을 포용한다.

모른시아 차원에서는 물질 차원의 이 모든 유한 규모들이 크게 증진되며, 특별한 새로운 규모

1. PERSONALITY AND REALITY

112:1.1 (1226.5) Personality is bestowed by the Universal Father upon his creatures as a potentially eternal endowment. Such a divine gift is designed to function on numerous levels and in successive universe situations ranging from the lowly finite to the highest absonite, even to the borders of the absolute. Personality thus performs on three cosmic planes or in three universe phases:

112:1.2 (1226.6) 1. *Position status.* Personality functions equally efficiently in the local universe, in the superuniverse, and in the central universe.

112:1.3 (1226.7) 2. *Meaning status.* Personality performs effectively on the levels of the finite, the absonite, and even as impinging upon the absolute.

112:1.4 (1226.8) 3. *Value status.* Personality can be experientially realized in the progressive realms of the material, the morontial, and the spiritual.

112:1.5 (1226.9) Personality has a perfected range of cosmic dimensional performance. The dimensions of finite personality are three, and they are roughly functional as follows:

112:1.6 (1226.10) 1. *Length* represents direction and nature of progression — movement through space and according to time — evolution.

112:1.7 (1226.11) 2. *Vertical depth* embraces the organismal drives and attitudes, the varying levels of self-realization and the general phenomenon of reaction to environment.

112:1.8 (1226.12) 3. *Breadth* embraces the domain of co-ordination, association, and selfhood organization.

112:1.9 (1226.13) The type of personality bestowed upon Urantia mortals has a potentiality of seven dimensions of self-expression or person-realization. These dimensional phenomena are realizable as three on the finite level, three on the absonite level, and one on the absolute level. On subabsolute levels this seventh or totality dimension is experiential as the *fact* of personality. This supreme dimension is an associable absolute and, while not infinite, is dimensionally potential for subinfinite penetration of the absolute.

112:1.10 (1226.14) The finite dimensions of personality have to do with cosmic length, depth, and breadth. Length denotes meaning; depth signifies value; breadth embraces insight — the capacity to experience unchallengeable consciousness of cosmic reality.

112:1.11 (1227.1) On the morontia level all of these finite dimensions of the material level are greatly

상의 가치들이 실현가능 하다. 모론시아 차원의 이 모든 확대된 규모상의 체험들은 모타의 영향을 통하여 그리고 모론시아 수학의 기여로 인하여 최종 또는 개인성 규모로 놀랍도록 또렷하게 이어가며 밝혀진다.

필사자들이 인간 개인성에 대한 그들의 학습에서 체험한 많은 문제점들은, 규모상의 차원들과 영적 차원들이 체험적 개인성 실현에서는 조화-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한 창조체가 기억한다면 피할 수 있다.

생명은 실제로 유기체(자아신분)와 그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개인성은 이 유기체적-환경적 관계적-연합에 정체성의 가치와 연속성의 의미들을 준다. 그리하여 개인성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로 기능함으로 충동(衝動)-반응(反應)의 현상이 단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작용은 태생적으로 수동적이다; 유기체는 태생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진실이다.

물리적 삶은 유기체 안에서 보다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모두가 그러한 환경에 반응하는 유기체적 모형들을 창조하고 확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향적인 원형틀들은 목표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자아와 환경이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것은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기체가 환경과의 그러한 의의(意義)깊은 접촉을(욕구에 대한 반응) 이루고자 하는 능력과 기꺼운 마음은 전체 개인성의 태도를 나타낸다.

개인성은 고립 속에서는 그다지 잘 수행하지 못한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창조체이다; 소속되어짐에 대한 열망으로 지배된다. “자기 자신에게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살아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모든 창조체의 전체에서의 의미에서 개인성의 개념은 관계들의 집대성활동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관계들의 조화-협동은 물론 실체들의 모든 요소들의 통일을 의미한다. 관계들은 두 대상들의 사이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셋 또는 그 이상의 상대자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국 생겨나며, 그러한 체계는 단순히 확대되고 복잡하게 된 관계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 구분은 극히 중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체계에서 개별존재 구성 요원들은 오직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전체의 개별존재성을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기체에서 부분들의 합계는 자아신분-개별존재성-을 구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이 모든 요소들을 조화우주 실체와 관련되는 것으로 통합하는 자인, 개인성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

enhanced, and certain new dimensional values are realizable. All these enlarged dimensional experiences of the morontia level are marvelously articulated with the supreme or personality dimension through the influence of mota and also because of the contribution of morontia mathematics.

112:1.12 (1227.2) Much trouble experienced by mortals in their study of human personality could be avoided if the finite creature would remember that dimensional levels and spiritual levels are not co-ordinated in experiential personality realization.

112:1.13 (1227.3) Life is really a process which takes place between the organism (selfhood) and its environment. The personality imparts value of identity and meanings of continuity to this organismal-environmental association. Thus it will be recognized that the phenomenon of stimulus-response is not a mere mechanical process since the personality functions as a factor in the total situation. It is ever true that mechanisms are innately passive; organisms, inherently active.

112:1.14 (1227.4) Physical life is a process taking place not so much within the organism as *between* the organism and the environment. And every such process tends to create and establish organismal patterns of reaction to such an environment. And all such *directive patterns* are highly influential in goal choosing.

112:1.15 (1227.5) It is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that the self and the environment establish meaningful contact.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organism to make such significant contacts with environment (response to a drive) represents the *attitude* of the whole personality.

112:1.16 (1227.6) Personality cannot very well perform in isolation. Man is innately a social creature; he is dominated by the craving of belongingness. It is literally true, “No man lives unto himself.”

112:1.17 (1227.7) But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as the meaning of the whole of the living and functioning creature means much more than the integration of relationships; it signifies the *unification* of all factors of reality as well as co-ordination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s exist between two objects, but three or more objects eventuate a *system*, and such a system is much more than just an enlarged or complex relationship. This distinction is vital, for in a cosmic system the individual members are not connected with each other except in relation to the whole and through the individuality of the whole.

112:1.18 (1227.8) In the human organism the summation of its parts constitutes selfhood — individuality — but such a process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personality, which is the unifier of all these factors as related to cosmic realities.

집대성에서는 부분들이 합해진다; 체계들에서는 부분들이 배열된다. 체계들은 조직—자리상의 가치로 인하여 의의(意義)있다. 좋은 체계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우주 자리에 있다. 나쁜 체계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모자라거나 바뀌어져—혼란되어 있다. 인간 체계에서 모든 활동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정체성과 창조성의 본질특성을 차례로 주는 것은 개인성이다.

제 2 장. 자아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자아신분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물리적 체계들은 종속적이다.
2. 지적 체계들은 조화-협동적이다.
3. 개인성은 초(超)서임(敍任)적이다.
4. 내주하는 영적 기세는 잠재적으로 지도적이다.

자아신분의 모든 개념에 있어서, 삶의 사실이 우선이며 평가 또는 해석은 차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어린 아이들은 먼저 살며 자기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조화우주 질서에 있어서 통찰력은 예견보다 앞선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우주 사실은 인간 개인성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언제까지나 바꾸어버렸다. 단어의 참된 의미에 있어서, 사랑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하거나 또는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신성한, 모든 개인성의 상호관심을 의미한다. 자아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생각, 느낌, 소망—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전체 개인성의 조화-협동하는 속성들은 지능 행동에서 집중된다; 이들 모든 힘은 인간 존재가 진심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인간 또는 신성한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필사자 마음의 영적 자질과 연관된다.

실체에 대한 모든 필사자 개념들은 인간 개인성의 실재성에 대한 가정에 기초를 둔다; 초인적 실체들의 모든 개념들은 어떤 연관된 영적 실존개체들 그리고 신성한 개인성들의 우주적 실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개인성의 체험에 기초를 둔다. 인간 체험에 있어서의 모든 비(非)영적인 것들은, 개인성을 예외로 하고, 결과에 대한 수단이다. 필사자 사람과 다른 개인들—인간적이거나 또는 신성하거나—과의 모든 참된 관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끝이다. 그리고 신(神)의 개인성과의 그러한 친교가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이다.

자아신분의 합일과 개인성의 자아-의식이 초물질 세계의 자질이므로, 개인성의 소유가 사람을 영적 존재로서 정체화한다. 필사자 물질주의자들이 초물질적 실체들의 실존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112:1.19 (1227.9) In aggregations parts are added; in systems parts are arranged. Systems are significant because of organization — positional values. In a good system all factors are in cosmic position. In a bad system something is either missing or displaced — deranged. In the human system it is the personality which unifies all activities and in turn imparts the qualities of identity and creativity.

2. THE SELF

112:2.1 (1227.10) It would be helpful in the study of selfhood to remember:

- 112:2.2 (1227.11) 1. That physical systems are subordinate.
- 112:2.3 (1227.12) 2. That intellectual systems are co-ordinate.
- 112:2.4 (1227.13) 3. That personality is superordinate.
- 112:2.5 (1227.14) 4. That the indwelling spiritual force is potentially directive.

112:2.6 (1228.1) In all concepts of selfhoo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fact of life comes first, its evaluation or interpretation later. The human child first *lives* and subsequently *thinks* about his living. In the cosmic economy insight precedes foresight.

112:2.7 (1228.2) The universe fact of God's becoming man has forever changed all meanings and altered all values of human personality. In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love connotes mutual regard of whole personalities, whether human or divine or human *and* divine. Parts of the self may function in numerous ways — thinking, feeling, wishing — but only the co-ordinated attributes of the whole personality are focused in intelligent action; and all of these powers ar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endowment of the mortal mind when a human being sincerely and unselfishly loves another being, human or divine.

112:2.8 (1228.3) All mortal concepts of reality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actuality of human personality; all concepts of superhuman realities a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human personality with and in the cosmic realities of certain associated spiritual entities and divine personalities. Everything nonspiritual in human experience, excepting personality, is a means to an end. Every true relationship of mortal man with other persons — human or divine — is an end in itself. And such fellowship with the personality of Deity is the eternal goal of universe ascension.

112:2.9 (1228.4)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identifies man as a spiritual being since the unity of selfhood and th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ity are endowments of the supermaterial world. The

바로 그 사실이 자체가, 저절로 그리고 그것에서 그의 인간 마음에 영의 합성과 우주 의식이 현존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그리고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물질과 생각 사이에는 거대한 조화우주 틈이 존재하며, 이 틈은 물질적 마음과 영적 사랑 사이에서는 갭 수도 없을 만큼 더욱 크다. 자아-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은 기계적 전기적 결합이나 물질적 에너지 현상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마음이 실체를 그 궁극적 분석에까지 추구함에 있어서, 물질은 물질적 감각으로 사라지지만 아직 마음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질이 사라진 후에 남아 있는 그 실체를 영적인 통찰력이 추적하고 궁극적 분석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은 마음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의 통찰력은 아직도 우주 실체들과 영적 본성의 최극 가치들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철학에게 양보하며, 한편으로 철학은 참된 영적 체험 속에 선천적인 귀결들에게 항복해야만 한다. 생각은 지혜에게 항복하며, 지혜는 깨우치고 반영적인 경배에서 사라진다.

과학에서 인간 자아는 물질세계를 관찰한다; 철학은 물질세계의 이 관찰에 대한 관찰이다; 종교, 참된 영적 체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에너지 물질들의 모든 이러한 상대적 합성을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는 조화우주 실체의 체험적 실현화이다. 배타적 물질주의 위에 우주의 철학을 세우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인간 의식의 체험 안에서 실제로서 착상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관찰되는 사물이 될 수는 없다; 평가는 평가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초월함이 필요하다.

시간 속에서, 생각은 지혜가 되고 지혜는 경배가 된다; 영원 속에서는, 경배는 지혜가 되고, 지혜는 생각의 최종으로 결국 생겨난다.

진화하는 자아 통일의 가능성은 구조적인 요소들: 기초적 에너지들, 주요 조직들, 기초적인 화학적 전반적-통제, 최극 개념들, 최극 동기들, 최극 목표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증여의 신성한 영—사람의 영적 본성의 자아-의식함의 비밀, 이들 요소들의 본질특성 속에 선천적이다.

조화우주 진화의 목적은 증가하는 영의 통치, 생각 조절자의 인도와 가르침에 대한 의지적 반응을 통하여 개인성의 합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개인성은, 인간과 초인간 모두에, “통치의 진화”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 자신과 환경 둘 모두에 대한 통제의 확대인, 선천적 조화우주 본질특성으로 특징

very fact that a mortal materialist can deny the existence of supermaterial realities in and of itself demonstrates the presence, and indicates the working, of spirit synthesis and cosmic consciousness in his human mind.

112:2.10 (1228.5) There exists a great cosmic gulf between matter and thought, and this gulf is immeasurably greater between material mind and spiritual love. Consciousness, much less self-consciousness, cannot be explained by any theory of mechanistic electronic association or materialistic energy phenomena.

112:2.11 (1228.6) As mind pursues reality to its ultimate analysis, matter vanishes to the material senses but may still remain real to mind. When spiritual insight pursues that reality which remains after the disappearance of matter and pursues it to an ultimate analysis, it vanishes to mind, but the insight of spirit can still perceive cosmic realities and supreme values of a spiritual nature. Accordingly does science give way to philosophy, while philosophy must surrender to the conclusions inherent in genuine spiritual experience. Thinking surrenders to wisdom, and wisdom is lost in enlightened and reflective worship.

112:2.12 (1228.7) In science the human self observes the material world; philosophy is the observation of this observation of the material world; religion, true spiritual experience, is the experiential realization of the cosmic reality of the observation of the observation of all this relative synthesis of the energy materials of time and space. To build a philosophy of the universe on an exclusive materialism is to ignore the fact that all things material are initially conceived as real in the experience of human consciousness. The observer cannot be the thing observed; evaluation demands some degree of transcendence of the thing which is evaluated.

112:2.13 (1228.8) In time, thinking leads to wisdom and wisdom leads to worship; in eternity, worship leads to wisdom, and wisdom eventuates in the finality of thought.

112:2.14 (1229.1)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of the evolving self is inherent in the qualities of its constitutive factors: the basic energies, the master tissues, the fundamental chemical overcontrol, the supreme ideas, the supreme motives, the supreme goals, and the divine spirit of Paradise bestowal — the secret of the self-consciousness of man's spiritual nature.

112:2.15 (1229.2) The purpose of cosmic evolution is to achieve unity of personality through increasing spirit dominance, volitional response to the teaching and leading of the Thought Adjuster. Personality, both human and superhuman, is characterized by an inherent cosmic quality which

지어진다.

한때 인간이었던 상승하는 개인성은 우주 안에서 그리고 자아 위에서의 점점 증가되는 의지작용의 통치에서의 두 개의 커다란 위상을 통과하며 지나간다:

1. 최종자-이전(以前)존재, 즉 조화우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주 통달과 함께하는 정체성 확대와 실제화구현의 기법을 통하여 자아-실현이 증강하고 있는 하느님을-찾는 체험

2. 최종자-이후(以後)존재, 즉 하느님과-같은-이름의 신성한 차원들을 아직 얻지 못한 하느님-찾는 지능 존재에게, 체험의 최종존재를 계시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창조적 확대를 이루는 하느님을-계시하는 체험.

하강하는 개인성들은 최극자,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 신(神)들의 신성한 의지들을 확인하고 집행하기 위한 확대되는 수용능력을 찾아가면서 그에 따른 그들의 다양한 우주 모험들을 통하여 비슷한 체험들을 달성한다.

물질적 자아, 인간 정체성의 자기-실존개체는 물리적인 삶 동안에, 물질적 생명 매체의 계속적인 기능, 유란시아에서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에너지들과 지성의 불안정한 평형의 계속되는 실존에, 의존한다. 그러나 생존되는 가치의 자아신분, 죽음의 체험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신분은, 과도기 생명 매체—물질적 몸체—로부터 모론시아 혼의 더욱 오래 견디고 그리고 불멸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 혼이 영 실체의 입김을 받고 결국에는 영 실체의 지위를 달성하는 차원들까지, 진화하는 개인성 정체성의 자리에 잠재적 전환을 이름으로써만 진화된다. 물질적 관계적-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정체화구현까지 이 실제적 전환은 인간 창조체가 하느님을 추구하는 결정들에 있어서의 성실성, 지속성 그리고 불변성에 의해 달성된다.

may be called “the evolution of dominance,” the expansion of the control of both itself and its environment.

112:2.16 (1229.3) An ascending onetime human personality passes through two great phases of increasing volitional dominance over the self and in the universe:

112:2.17 (1229.4) 1. The prefinaliter or God-seeking experience of augmenting the self-realization through a technique of identity expansion and actualization together with cosmic problem solving and consequent universe mastery.

112:2.18 (1229.5) 2. The postfinaliter or God-revealing experience of the creative expansion of self-realization through revealing the Supreme Being of experience to the God-seeking intelligences who have not yet attained the divine levels of Godlikeness.

112:2.19 (1229.6) Descending personalities attain analogous experiences through their various universe adventures as they seek for enlarged capacity for ascertaining and executing the divine wills of the Supreme, Ultimate, and Absolute Deities.

112:2.20 (1229.7) The material self, the ego-entity of human identity, is dependent during the physical life on the continuing function of the material life vehicle, on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unbalanced equilibrium of energies and intellect which, on Urantia, has been given the name *life*. But selfhood of survival value, selfhood that can transcend the experience of death, is only evolved by establishing a potential transfer of the seat of the identity of the evolving personality from the transient life vehicle — the material body — to the more enduring and immortal nature of the morontia soul and on beyond to those levels whereon the soul becomes infused with, and eventually attains the status of, spirit reality. This actual transfer from material association to morontia identification is effected by the sincerity, persistence, and steadfastness of the God-seeking decisions of the human creature.

제 3 장. 죽음의 현상

유란시아인 들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의 죽음, 생명 에너지들의 물리적 중단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성 생존과 관련하여 본다면 실제로 세 가지가 있다:

1. 영적 (혼) 죽음. 만일 필사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을 때, 그가 조절자와 생존의 세라핌천사의 공동 견해 안에서 영적으로 파멸, 모론시아적으로 파산이 선고되어졌을 때, 그러한 조화-협동이 유버사에 기록될 때, 그리고 검열관들과 그들의 반영적인 연관-동료들이 이 조사 결과들을 확인한 후, 그런 다음에 오르본톤의 통치

3. THE PHENOMENON OF DEATH

112:3.1 (1229.8) Urantians generally recognize only one kind of death, the physical cessation of life energies; but concerning personality survival there are really three kinds:

112:3.2 (1229.9) 1. *Spiritual (soul) death*. If and when mortal man has finally rejected survival, when he has been pronounced spiritually insolvent, morontially bankrupt, in the conjoint opinion of the Adjuster and the surviving seraphim, when such co-ordinate advice has been recorded on Uversa, and after the Censors and their reflective

자들은 내주 하는 감시자가 즉시 분리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조절자의 이러한 분리는, 조절자를 포기한 개별존재와 관계된 개인 또는 집단 세라핌천사의 임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은 물리적 그리고 마음 기능구조들의 살아있는 에너지들의 일시적인 존속에 상관없이 그 의의(意義)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다. 조화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필사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계속되는 삶은 다만 조화우주 에너지들의 물질적 잔여 운동력의 존속을 의미할 뿐이다.

2. 지적 (마음) 죽음. 보다 높은 보조 사명활동의 생명 순환회로들이 지성의 이상을 통하여 또는 뇌의 기능구조 일부가 파괴됨에 의하여 파괴될 때, 그리고 만일 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한 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내주하는 조절자는 즉시 분리되어 신성별로 떠난다. 우주의 기록들에 의하면 필사자의 개인성은 인간의 의지-행동의 본질적 마음 순환회로들이 파괴될 때에는 언제나 죽음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 작용이 계속되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것이다. 의지적인 마음을 제외한 육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만, 그러한 개별존재의 혼(魂)은 인간 의지의 이전(以前) 결정에 따라서 생존될 수도 있다.

3. 물리적 (몸과 마음) 죽음. 죽음이 인간 존재에게 닥쳐올 때, 조절자는 그 작용이 멈출 때, 측정 가능한 뇌 에너지들이 그들의 주기적인 생명 박동이 멈출 때, 지능적인 기능구조로써 그것이 기능하기를 멈출 때까지 마음의 요새 속에 남아 있다. 이 소멸에 이어서 조절자는 사라지는 마음을 떠나며, 몇 해 전에 입장할 때와 같이 아무 예식도 없이, 유버사를 경유하여 신성별로 나아간다.

죽음 후에 물질적인 육체는 그것이 유래되었던 원소계로 돌아가지만, 생존되는 개인성의 두 가지 비(非)물질적 요소는 존속한다: 선재(先在)하는 생각 조절자는 필사자 생애의 기억 사본과 함께 신성별로 나아간다; 또한 사망한 인간의 불멸하는 모론시아 혼은 운명 수호자의 보호 속에, 그대로 남는다. 혼의 이 위상들과 형태들은, 이들은 한 때 활동적이었으나 지금은 정지된 정체성 구조 공식인데,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재(再)개인성구현되는 데에 필수적이다; 모론시아 깨어남의 시기에 생존하는 개인성을 재조립하는 것, 너희를 다시 의식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조절자와 혼의 재결합이다.

개인적인 세라핌천사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집단 보호관리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정체성 보존과 개인성 부활의 봉사를 수행한다. 세라핌천사들은 개인성의 재조합에 필수이다.

associates have verified these findings, thereupon do the rulers of Orvonton orde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indwelling Monitor. But this release of the Adjuster in no way affects the duties of the personal or group seraphim concerned with that Adjuster-abandoned individual. This kind of death is final in its significance irrespective of the temporary continuation of the living energies of the physical and mind mechanisms. From the cosmic standpoint the mortal is already dead; the continuing life merely indicates the persistence of the material momentum of cosmic energies.

112:3.3 (1230.1) 2. *Intellectual (mind) death.* When the vital circuits of higher adjutant ministry are disrupted through the aberrations of intellect or because of the partial destruction of the mechanism of the brain, and if these conditions pass a certain critical point of irreparability, the indwelling Adjuster is immediately released to depart for Divinington. On the universe records a mortal personality is considered to have met with death whenever the essential mind circuits of human will-action have been destroyed. And again, this is death, irrespective of the continuing function of the living mechanism of the physical body. The body minus the volitional mind is no longer human, but according to the prior choosing of the human will, the soul of such an individual may survive.

112:3.4 (1230.2) 3. *Physical (body and mind) death.* When death overtakes a human being, the Adjuster remains in the citadel of the mind until it ceases to function as an intelligent mechanism, about the time that the measurable brain energies cease their rhythmic vital pulsations. Following this dissolution the Adjuster takes leave of the vanishing mind, just as unceremoniously as entry was made years before, and proceeds to Divinington by way of Uversa.

112:3.5 (1230.3) After death the material body returns to the elemental world from which it was derived, but two nonmaterial factors of surviving personality persist: The pre-existent Thought Adjuster, with the memory transcription of the mortal career, proceeds to Divinington; and there also remains, in the custody of the destiny guardian, the immortal morontia soul of the deceased human. These phases and forms of soul, these once kinetic but now static formulas of identity, are essential to repersonalization on the morontia worlds; and it is the reunion of the Adjuster and the soul that reassembles the surviving personality, that reconsciousizes you at the time of the morontia awakening.

112:3.6 (1230.4) For those who do not have personal seraphic guardians, the group custodians faithfully and efficiently perform the same service of identity safekeeping and personality resurrection. The seraphim are indispensable to the reassembly of personality.

생각 조절자는 죽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개인성을 잃어버리지만,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 인간 주체는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으나 개인성은 잃지 않는다; 맨션세계들에서 이 둘은 영원한 현시 활동으로 재(再)연합한다. 떠났던 생각 조절자는 전에 내주하였던 똑같은 존재로서는 땅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개인성은 인간 의지 없이 결코 현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절자와 분리된 인간 존재는 죽은 후에 활동적인 정체성을 결코 현시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땅에 있는 살아 있는 존재와 교통하지 않는다. 조절자가 분리된 그러한 영들은 죽음 속에 길게 또는 짧게 잠들어 있는 동안 완벽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의식적이다. 생존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른 개인성들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개인성이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맨션세계들로 가는 자들은 거꾸로 그들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소식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섭리시대 동안에는 그러한 교통이 전 우주들에 걸쳐서 금지되어 있다.

제 4 장. 죽음 이후의 조절자

물질적, 지적, 또는 영적 본성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조절자는 필사자 주인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신성별을 향하여 떠난다.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반영적 접촉이 두 정부의 감독자들과 이루어지며, 그 감시자는 시간의 권역들 안으로 진입 시 기록된 것과 똑같은 번호에 의해 분류되어 등록된다.

어떤 면에서 충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우주 검열자들은 영적 가치들과 내주 하였던 마음의 모론시아 의미들에 대한 조절자의 복사본 안에 체현된 인간 삶의 개요를 구할 수 있다. 검열관들은 사망한 인간의 생존되는 성격과 영적 본질특성들에 대한 조절자의 해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은, 세라핌천사의 기록들과 함께, 관련된 개별존재의 판결에 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행성 섭리시대의 공식적 종료 이전에, 필사자의 소멸과 더불어, 맨션세계들로 나아가는, 특정한 상승자들이 그들의 모론시아 생애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우주 명령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또한 사용된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옮겨진 개별존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분리된 조절자는 즉시 신성별의 고향 구체로 간다. 생존되는 필사자가 사실적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자세한 것은 주로, 그 인간 존재가 그의 개별적 권한으로 맨션세계들로 상승하는지 또는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로서의 섭리시대 호출을 기다

112:3.7 (1230.5) Upon death the Thought Adjuster temporarily loses personality, but not identity; the human subject temporarily loses identity, but not personality; on the mansion worlds both reunite in eternal manifestation. Never does a departed Thought Adjuster return to earth as the being of former indwelling; never is personality manifested without the human will; and never does a dis-Adjusted human being after death manifest active identity or in any manner establish communication with the living beings of earth. Such dis-Adjusted souls are wholly and absolutely unconscious during the long or short sleep of death. There can be no exhibition of any sort of personality or ability to engage in communications with other personalities until after completion of survival. Those who go to the mansion worlds are not permitted to send messages back to their loved ones. It is the policy throughout the universes to forbid such communication during the period of a current dispensation.

4. ADJUSTERS AFTER DEATH

112:4.1 (1231.1) When death of a material, intellectual, or spiritual nature occurs, the Adjuster bids farewell to the mortal host and departs for Divinington.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a reflective contact is made with the supervisors of both governments, and the Monitor is registered out by the same number that recorded entry into the domains of time.

112:4.2 (1231.2) In some way not fully understood, the Universal Censors are able to gain possession of an epitome of the human life as it is embodied in the Adjuster's duplicate transcription of the spiritual values and morontia meanings of the indwelt mind. The Censors are able to appropriate the Adjuster's version of the deceased human's survival character and spiritual qualities, and all this data, together with the seraphic records, is available for presentation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the individual concerned. This information is also used to confirm those superuniverse mandates which make it possible for certain ascenders immediately to begin their morontia careers, upon mortal dissolution to proceed to the mansion worlds ahead of the formal termination of a planetary dispensation.

112:4.3 (1231.3) Subsequent to physical death, except in individuals translated from among the living, the released Adjuster goes immediately to the home sphere of Divinington. The details of what transpires on that world during the time of awaiting the factual reappearance of the surviving mortal depend chiefly on whether the human being ascends to the mansion worlds in his own

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일에 필사자 연관-동료가 한 섭리시대의 끝에 재(再)개인성구현 될 집단에 속해 있다면, 조절자는 봉사하였던 이전 체계의 맨션세계로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할당된 임무들 중의 하나에 임하게 될 것이다:

1. 알려지지 않은 봉사를 위하여, 사라진 감시자의 무리 안으로 소집됨.
2. 파라다이스 체계의 감시를 위하여 얼마 동안 배정됨.
3. 신성별의 여러 훈련 학교들 중의 하나에 입학.
4. 파라다이스 세계들의 아버지 순환회로를 구성하는 다른 여섯 개의 신성한 구체들 중의 하나에 학생 관찰자로 얼마동안 배치됨.
5.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의 메신저업무에 배정됨.
6. 순결 집단에 속한 감시자들의 훈련에 바쳐진 신성별의 학교에서 연관-동료 강사가 됨.
7. 인간 동반자가 생존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봉사할, 가능한 세계들의 집단을 선택하는 데에 배정된다.

죽음이 너희에게 닥쳐 올 때, 만일 너희가 세 번째 순환계 또는 보다 높은 영역을 달성하였고 그리하여 개인적 운명수호천사가 너희에게 배정되었다면, 그리고 만일 조절자에 의해 제출된 생존하는 성격에 대한 요약의 최종 사본이 운명 수호천사에 의해 무조건 보증된다면—만일 세라핌 천사와 조절자 모두가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과 추천 내용들의 모든 항목들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만일 우주 검열자들과 유버사에 있는 그들의 반영 연관-동료들이 이 자료를 확인하고 열버무리거나 보류함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옛것으로 늘 계신이는 진보된 신분을 허락하는 명령을 구원자별로 가는 통신 순환회로들 위로 하달하며, 그렇게 해서, 네바돈의 주권자의 법정, 증서는 맨션세계들에 있는 부활이 일어나는 곳으로 생존되는 혼이 즉시 통과되도록 명할 것이다.

만일 인간 개별존재가 연기됨이 없이 생존되면, 내가 배운 바로는, 조절자가 신성별에 등록하고,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현존에게로 나아가며, 즉시 돌아와서 배정된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에 의해 포용되어, 신성별의 개인성구현된 감시자 우두머리로부터의 인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즉시 “정체성 변환의 실현”을 통과하면서, 그때부터 운명 수호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온 형태로써, 지상 필사자의 생존하는 혼의 수용을 위해 준비된 실제적인

individual right or awaits a dispensational summoning of the sleeping survivors of a planetary age.

112:4.4 (1231.4) If the mortal associate belongs to a group that will be repersonalized at the end of a dispensation, the Adjuster will not immediately return to the mansion world of the former system of service but will, according to choice, enter upon one of the following temporary assignments:

- 112:4.5 (1231.5) 1. Be mustered into the ranks of vanished Monitors for undisclosed service.
- 112:4.6 (1231.6) 2. Be assigned for a period to the observation of the Paradise regime.
- 112:4.7 (1231.7) 3. Be enrolled in one of the many training schools of Divinington.
- 112:4.8 (1231.8) 4. Be stationed for a time as a student observer on one of the other six sacred spheres which constitute the Father's circuit of Paradise worlds.
- 112:4.9 (1231.9) 5. Be assigned to the messenger servi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s.
- 112:4.10 (1231.10) 6. Become an associate instructor in the Divinington schools devoted to the training of Monitors belonging to the virgin group.
- 112:4.11 (1231.11) 7. Be assigned to select a group of possible worlds on which to serve in the event that there is reasonable cause for believing that the human partner may have rejected survival.

112:4.12 (1231.12) If, when death overtakes you, you have attained the third circle or a higher realm and therefore have had assigned to you a personal guardian of destiny, and if the final transcript of the summary of survival character submitted by the Adjuster is unconditionally certified by the destiny guardian — if both seraphim and Adjuster essentially agree in every item of their life records and recommendations — if the Universal Censors and their reflective associates on Uversa confirm this data and do so without equivocation or reservation, in that event the Ancients of Days flash forth the mandate of advanced standing over the communication circuits to Salvington, and, thus released, the tribunals of the Sovereign of Nebadon will decree the immediate passage of the surviving soul to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worlds.

112:4.13 (1232.1) If the human individual survives without delay, the Adjuster, so I am instructed, registers at Divinington, proceeds to the Paradi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returns immediately and is embraced by the Personalized Adjus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local universe of assignment, receives the recognition of the chief Personalized Monitor of Divinington, and then, at once, passes into the “realization of identity transition,” being summoned therefrom on

개인성 형태 안으로, 세 번째 기간에, 맨션세계에서 호출된다.

the third period and on the mansion world in the actual personality form made ready for the reception of the surviving soul of the earth mortal as that form has been projected by the guardian of destiny.

제 5 장. 인간 자아의 생존

자아신분은 물질적이든지, 모론시아적이든지, 또는 영적이든지 하나의 조화우주 실체이다. 개인적인 자의 실재성은 스스로 또는 그의 다양한 우주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우주 아버지의 증여이다. 어떤 존재가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상대적 개별존재 생성화를 조화우주 유기체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조화우주는 실제적인 단위들이 거의 무한으로 집대성된 집합체이며, 그 모든 것들은 전체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한 자들은 운명 수용 또는 운명 거부의 실제적인 선택과 함께 자질로서 부여되어 왔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것은 아버지처럼 영원하며, 그것이 하느님의 실제적인 단편인 신성한 생각 조절자의 것인 것처럼, 하느님이 그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으로 주어진 개인성에 대해서도 진실이다. 사람의 개인성은 영원하지만 정체성으로 본다면 조건적인 영원한 실체이다. 아버지의 의지에 응하여 나타난, 개인성은 신(神) 운명을 달성할 것이지만, 사람은 그러한 운명의 달성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한 선택에서의 불이행에서는, 개인성은 체험적 신(神)에 직접 도달하며, 최극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순환주기는 운명 지어져 있지만, 그곳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개인적이며, 또한 체험적이다.

필사자의 정체성은 우주에서 과도기적인 시간-생명 상태에 있다; 개인성은 계속되는 우주 현상이 되려고 선택하는 한에서만 실제적이다. 이것이 사람과 에너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에너지 체계는 계속되어야 하면서, 선택이 없지만; 사람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조절자는 진실로 파라다이스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만, 사람 자신은 자신의 결정, 그의 자유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추구해야만 한다.

인간 존재들은 오직 물질적 감각에서만 정체성을 갖는다. 자아(自我)의 그러한 본질특성들은 그것이 지능의 에너지 체계 속에서 기능함으로써 물질적 마음에 의해서 표현된다.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 개인성 의지의 선택과 행동들에 종속되는 것으로 위치한 마음 순환회로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태아가 인간 생명의 과도기적인 기생 단계인 것처럼 물질적이며 순전히 일시적인 현시활동이다. 조화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시간의 상대적 순간 속에서 낳고, 살다가 죽으며; 그들은 지속되지

5. SURVIVAL OF THE HUMAN SELF

112:5.1 (1232:2) Selfhood is a cosmic reality whether material, morontial, or spiritual. The actuality of the *personal* is the bestowal of the Universal Father acting in and of himself or through his manifold universe agencies. To say that a being is personal is to recognize the relative individuation of such a being within the cosmic organism. The living cosmos is an all but infinitely integrated aggregation of real units, all of which are relatively subject to the destiny of the whole. But those that are personal have been endowed with the actual choice of destiny acceptance or of destiny rejection.

112:5.2 (1232:3) That which comes from the Father is like the Father eternal, and this is just as true of personality, which God gives by his own freewill choice, as it is of the divine Thought Adjuster, an actual fragment of God. Man's personality is eternal but with regard to identity a conditioned eternal reality. Having appeared in response to the Father's will, personality will attain Deity destiny, but man must choose whether or not he will be present at the attainment of such destiny. In default of such choice, personality attains experiential Deity directly, becoming a part of the Supreme Being. The cycle is foreordained, but man's participation therein is optional, personal, and experiential.

112:5.3 (1232:4) Mortal identity is a transient time-life condition in the universe; it is real only in so far as the personality elects to become a continuing universe phenomenon. This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man and an energy system: The energy system must continue, it has no choice; but man has everything to do with determining his own destiny. The Adjuster is truly the path to Paradise, but man himself must pursue that path by his own deciding, his freewill choosing.

112:5.4 (1232:5) Human beings possess identity only in the material sense. Such qualities of the self are expressed by the material mind as it functions in the energy system of the intellect. When it is said that man has identity, it is recognized that he is in possession of a mind circuit which has been placed in subordination to the acts and choosing of the will of the human personality. But this is a material and purely temporary manifestation, just as the human embryo is a transient parasitic stage of human life. Human beings, from a cosmic perspective, are born, live, and die in a relative

않는다. 그러나 필사자의 개인성은 그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그 정체성의 자리를 지나가는 물질-지성 체계로부터, 생각 조절자와 관계적-연합하여 개인성 현시활동을 위해 새로운 매체로 창조되는 보다 높은 모론시아-혼 체계로, 바꾸어주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위대한 기회, 그의 최종 조화우주 책임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의 힘, 자유의지의 창조체 신분의 우주적 표식이다. 미래 최종자의 영원한 운명은 인간 의지작용의 고결한-순수성에 달려 있다; 신성한 조절자는 영원한 개인성을 필사자의 자유 의지의 성실성에 의존한다; 우주 아버지는 새로이 상승하는 아들의 실현을 위하여 필사자 선택의 신실성에 의존한다; 최종존재는 체험적 진화의 실재성을 위하여 결단-행동들의 지혜와 불변성에 의존한다.

개인성 성장의 조화우주 순환계들이 결국에는 달성될 것이지만, 만일 너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우연한 사고들과 물질 실존의 장애가 너희가 태어난 행성에서 이 차원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만일에 너희의 의도와 욕구들이 생존될만한 가치가 있다면, 보호관찰 연장의 판결이 내려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잘 제공받게 될 것이다.

한 인간 정체성을 맨션세계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있어서 만일 의구심이 언제라도 있으면, 우주 정부들은 반드시 그 개별 존재의 개인적 이익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창발하는 모론시아 의도와 영적 목적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혼이 과도적 존재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신성한 공의가 성취에서 확실하며, 신성한 자비는 그 확장하는 사명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오르본톤과 네바돈의 정부들은 필사자의 재(再)개인성구현되는 우주 계획의 세부 작업에 대하여 절대적 완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참을성, 관용, 납득, 그리고 자비로운 동정심을 현시하기를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어느 진화하는 세계에서 악전고투하는 한 명의 필사자로 부터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는 위험을 자초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체계가 반역하는 위험을 무릅쓰겠다.

이것은 인간 존재들이 첫 번째의 기회를 거절한 마당에 두 번째의 기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의지 창조체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자아-의식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한 번 할 수 있는 한 번의 참된 기회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들의 주권을 가진 재판관들은 영원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내리지 않은 개인성 지위의 어떤 존재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사

instant of time; they are not enduring. But mortal personality, through its own choosing, possesses the power of transferring its seat of identity from the passing material-intellect system to the higher morontia-soul system which, in associat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is created as a new vehicle for personality manifestation.

112:5.5 (1233.1) And it is this very power of choice, the universe insignia of freewill creaturehood, that constitutes man's greatest opportunity and his supreme cosmic responsibility. Upon the integrity of the human volition depends the eternal destiny of the future finaliter; upon the sincerity of the mortal free will the divine Adjuster depends for eternal personality; upon the faithfulness of mortal choice the Universal Father depends for the realization of a new ascending son; upon the steadfastness and wisdom of decision-actions the Supreme Being depends for the actuality of experiential evolution.

112:5.6 (1233.2) Though the cosmic circles of personality growth must eventually be attained, if,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the accidents of time and the handicaps of material existence prevent your mastering these levels on your native planet, if your intentions and desires are of survival value, there are issued the decrees of probation extension. You will be afforded additional time in which to prove yourself.

112:5.7 (1233.3) If ever there is doubt as to the advisability of advancing a human identity to the mansion worlds, the universe governments invariably rule i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at individual; they unhesitatingly advance such a soul to the status of a transitional being, while they continue their observations of the emerging morontia intent and spiritual purpose. Thus divine justice is certain of achievement, and divine mercy is accorded further opportunity for extending its ministry.

112:5.8 (1233.4) The governments of Orvonton and Nebadon do not claim absolute perfection for the detail working of the universal plan of mortal repersonalization, but they do claim to, and actually do, manifest patience, tolerance, understanding, and merciful sympathy. We had rather assume the risk of a system rebellion than to court the hazard of depriving one struggling mortal from any evolutionary world of the eternal joy of pursuing the ascending career.

112:5.9 (1233.5) This does not mean that human beings are to enjoy a second opportunity in the face of the rejection of a first, not at all. But it does signify that all will creatures are to experience one true opportunity to make one undoubted, self-conscious, and final choice. The sovereign Judges of the universes will not deprive any being of personality status who has not finally and fully made the eternal choice; the soul of man must

람의 혼은 그 참된 의도와 실제 목적을 계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풍부한 기회가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보다 더 영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진보된 필사자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즉시 맨션세계들로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그들에게 배정되었던 개인적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필사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관련사들에 대한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되며, 그 후에 그들이 맨션세계들로 향하게 되거나 또는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끝날 때 통틀어서 재(再)개인성구현될 잠자는 생존자들의 집단에 배정될 것이다.

죽음에서의 너희, 즉 떠나가는 조절자와는 다른, 생존되는 너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나의 노력을 방해하는 두 개의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의 경계지점에서 일어나는 활동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적당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유란시아의 천상의 통치 권한들에 의해 진리 계시자인 나의 위원회에 내려진 제약들 때문에 야기된다. 거기에는 보여줄 만한 흥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직접적인 행성 감독자들의 충고에 따라 그것들을 보류한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생존하는 실제적인 어떤 것, 인간 진화의 어떤 것, 신비 감시자에 더해지는 어떤 것이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실존개체는 혼이며, 이것은 너희의 물리적인 몸과 물질적인 마음들 모두의 죽음에서 생존한다. 이 실존개체는 신성한 너, 조절자와 관계를 가지는 인간인 너의 노력들과 그리고 병합된 생명의 공동 자녀이다. 인간과 신성한 어버이로부터 나온 이 자녀는 이 세상에서 기원된 것 중에 살아남는 요소를 이루며; 그것은 모론시아 자아, 불멸의 혼이다.

존속하는 의미와 생존되는 가치의 이 자녀는 죽음으로부터 재(再)개인성구현 될 때까지 전혀 무의식이며 기다리는 전체의 이 기간 동안 세라핌천사 운명 수호자에 의해 보관된다. 너희는 일단 죽고 나면, 사타니아의 맨션세계들에서 모론시아의 새로운 의식을 획득할 때까지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서 인간 개인성과 연관된 기능상의 정체성은 생명 동작의 중지를 통하여 중단된다. 인간 개인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초월하지만, 기능상의 정체성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의존한다. 생명의 정지는 마음 자질을 위한 물리적 뇌 원형틀들을 파괴하며, 마음의 두절은 필사자 의식을 종결시킨다. 그 창조체의 의식은 그 후에 살아있는 에너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기능하는 동일한 인간 개인성을 허용하게 될 조화우주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and will be given full and ample opportunity to reveal its true intent and real purpose.

112:5.10 (1233.6) When the more spiritually and cosmically advanced mortals die, they proceed immediately to the mansion worlds; in general, this provision operates with those who have had assigned to them personal seraphic guardians. Other mortals may be detained until such time as the adjudication of their affairs has been completed, after which they may proceed to the mansion worlds, or they may be assigned to the ranks of the sleeping survivors who will be repersonalized en masse at the end of the current planetary dispensation.

112:5.11 (1233.7) There are two difficulties that hamper my efforts to explain just what happens to *you* in death, the surviving *you* which is distinct from the departing Adjuster. One of these consists in the impossibility of conveying to your level of comprehension an adequate description of a transaction on the borderland of the physical and morontia realms. The other is brought about by the restrictions placed upon my commission as a revelator of truth by the celestial governing authorities of Urantia. There are many interesting details which might be presented, but I withhold them upon the advice of your immediate planetary supervisors. But within the limits of my permission I can say this much:

112:5.12 (1234.1) There is something real, something of human evolution, something additional to the Mystery Monitor, which survives death. This newly appearing entity is the soul, and it survives the death of both your physical body and your material mind. This entity is the conjoint child of the combined life and efforts of the human you in liaison with the divine you, the Adjuster. This child of human and divine parentage constitutes the surviving element of terrestrial origin; it is the morontia self, the immortal soul.

112:5.13 (1234.2) This child of persisting meaning and surviving value is wholly unconscious during the period from death to repersonalization and is in the keeping of the seraphic destiny guardian throughout this season of waiting. You will not function as a conscious being, following death, until you attain the new consciousness of morontia on the mansion worlds of Satania.

112:5.14 (1234.3) At death the functional identity associated with the human personality is disrupted through the cessation of vital motion. Human personality, while transcending its constituent parts, is dependent on them for functional identity. The stoppage of life destroys the physical brain patterns for mind endowment, and the disruption of mind terminates mortal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of that creature cannot subsequently reappear until a cosmic situation has

생존되는 필사자가 본래의 세계로부터 맨션 세계들로 통과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세 번째 기간에 개인성 재조합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집단적 부활의 때에 상승하든지 간에, 개인성 구성에 대한 기록은 천사장들에 의해 그들의 특수 활동 세계들에 보존된다. 이 존재들은 개인성의 보호관리자는 아니지만 (수호자 세라핌천사들이 혼의 보호관리자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화할 수 있는 개인성의 모든 요소들이 필사자 생존에 의존할만한 이들 보관인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죽음과 생존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시간 동안 개인성의 정확한 행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재(再)개인성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상황은 지역우주의 모론시아 접수 행성에 있는 부활(復活)의 방들에서 일어난다. 바로 이 생명-조합실들 속에서 감독하는 권한자들이 잠자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다시 의식화되도록 하는 우주 에너지들의 관계를—모론시아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준비한다. 한때 물질적인 개인성의 성분이 되는 부분들의 재결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용한다:

1. 새로운 생존자가 그 안에서 비(非)영적인 실체와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우주 마음의 모론시아 변형이 회로화 되는 적당한 형태, 모론시아 에너지 원형들의 조합.

2. 기다리는 모론시아 창조체에게 조절자가 돌아옴. 조절자는 너희의 상승하는 정체성의 영원한 보호관리자이다; 너희의 감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너희의 개인성 자각을 위하여 창조된 모론시아 형태를 차지할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조절자는 생존되는 너희 자아에게 파라다이스 안내의 역할을 한 번 더 수행하기 위하여 너희 개인성 재(再)집합 시에 나타날 것이다.

3. 재(再)개인성구현에 필요한 이 조건들이 합쳐질 때, 잠자는 불멸의 혼의 잠재성의 세라핌천사 보호관리자는, 많은 조화우주 개인성들의 도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론시아 마음-육체 형태 위에 그리고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 진화하는 최극의 자녀를 기다리는 조절자와의 영원한 관계적-연합에게 맡기면서, 이 모론시아 실존개체를 증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 통찰력, 그리고 의식—정체성—의 재집합, 재(再)개인성구현을 완료한다.

재(再)개인성구현의 사실은, 깨어나는 인간 자아에 의해 새롭게 분리된 조화우주 마음의 회로화된 모론시아 위상의 획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성의 현상은 우주 환경에 대한 자아신분 반작용의 정체성의 지속성에 의존한다; 이것은 오직 마음의

been arranged which will permit the same human personality again to function in relationship with living energy.

112:5.15 (1234.4) During the transit of surviving mortals from the world of origin to the mansion worlds, whether they experience personality reassembly on the third period or ascend at the time of a group resurrection, the record of personality constitution is faithfully preserved by the archangels on their worlds of special activities. These beings are not the custodians of personality (as the guardian seraphim are of the soul), but it is nonetheless true that every identifiable factor of personality is effectually safeguarded in the custody of these dependable trustees of mortal survival. As to the exact whereabouts of mortal personality during the time intervening between death and survival, we do not know.

112:5.16 (1234.5) The situation which makes repersonalization possible is brought about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orontia receiving planets of a local universe. Here in these life-assembly chambers the supervising authorities provide that relationship of universe energy — morontial, mindal, and spiritual — which makes possible the reconsciousizing of the sleeping survivor. The reassembly of the constituent parts of a onetime material personality involves:

112:5.17 (1234.6) 1. The fabrication of a suitable form, a morontia energy pattern, in which the new survivor can make contact with nonspiritual reality, and within which the morontia variant of the cosmic mind can be encircuited.

112:5.18 (1234.7) 2. The return of the Adjuster to the waiting morontia creature. The Adjuster is the eternal custodian of your ascending identity; your Monitor is the absolute assurance that you yourself and not another will occupy the morontia form created for your personality awakening. And the Adjuster will be present at your personality reassembly to take up once more the role of Paradise guide to your surviving self.

112:5.19 (1235.1) 3. When these prerequisites of repersonalization have been assembled, the seraphic custodian of the potentialities of the slumbering immortal soul, with the assistance of numerous cosmic personalities, bestows this morontia entity upon and in the awaiting morontia mind-body form while committing this evolutionary child of the Supreme to eternal association with the waiting Adjuster. And this completes the repersonalization, reassembly of memory, insight, and consciousness — identity.

112:5.20 (1235.2) The fact of repersonalization consists in the seizure of the encircuited morontia phase of the newly segregated cosmic mind by the awakening human self. The phenomenon of personality is dependent on the persistence of the

중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자아신분은 자아의 구성성분인 모든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그 변화는 물리적 삶 속에서 점진적이다; 그 변화는 죽음과 재(再)개인성 구현에서는 돌연히 일어난다. 모든 자아신분(개인성)의 진정한 실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끊임없는 변화 덕분에 우주 상황에 민감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정지 상태는 필연적인 죽음에서 끝난다. 인간의 생명은 불변하는 개인성의 안정성에 의해 통합되는, 생명의 요소들의 끝없는 변화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셈의 맨션세계들에서 깨어날 때, 너희는 너무나 변화되어 있고, 영적 변화이 너무나 커서, 새로운 세상들에서 너희의 새로운 삶을 처음 세계에서의 너희의 지난 삶과 충분히 연결해주는 너희의 생각 조절자나 운명 수호자들이 아니었다면, 처음에는 너희가 새로운 모론시아의식과 너희의 이전 정체성에 대하여 소생되는 기억을 연결시키는 데에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적 자아신분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필사자 삶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몽롱한 꿈과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은 많은 필사자 관계적-연합들을 뚜렷하게 할 것이다.

생각 조절자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의 우주 생애에 필수적이며 그 부분들을 이루는 기억들과 체험들만을 다시 불러와 숙달시킬 것이다. 만약 조절자가 인간 마음속의 어떤 것의 진화에 동반자였다면, 이들 가치 있는 체험들은 조절자의 영원한 의식 속에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도 없고 모론시아 가치도 없는 너희의 과거 삶과 그 기억의 대부분은 물질적 뇌와 함께 사멸될 것이다; 너희를 모론시아 차원으로 가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던 물질적 체험의 대부분은 우주 안에서 어떤 목적에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 한때의 발판으로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개인성과 개인성들 간의 관계들은 결코 사멸되지 않는다; 개인성 관계들에 대한 필사자의 기억은 조화우주 가치를 가지고 존속될 것이다. 맨션세계에서, 짧지만 흥미로웠던 유란시아의 일생 동안에 한때 관계를 가졌던 연관-동료들을 너희가 알아보고 또 그들도 너희를 알 것이며, 더욱이 너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제 6 장. 모론시아 자아

에벨레의 단계로부터 나비가 생기듯이, 인간 존재의 참된 개인성도 맨션세계들에서 생겨나는 데, 한때 그들이 물질적 육신 속에 가리어졌던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지역우주에서의 모론시아 생애는 혼 실존의 초기 모론시아 차원으로부터 진화적 영성의 최종 모론시아 차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성 기능구조의 계속적인 증진과 관계가 있다

identity of selfhood reaction to universe environment; and this can only be effected through the medium of mind. Selfhood persists in spite of a continuous change in all the factor components of self; in the physical life the change is gradual; at death and upon repersonalization the change is sudden. The true reality of all selfhood (personality) is able to function responsively to universe conditions by virtue of the unceasing changing of its constituent parts; stagnation terminates in inevitable death. Human life is an endless change of the factors of life unified by the stability of the unchanging personality.

112:5.21 (1235.3) And when you thus awaken on the mansion worlds of Jerusem, you will be so change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will be so great that, were it not for your Thought Adjuster and the destiny guardian, who so fully connect up your new life in the new worlds with your old life in the first world, you would at first have difficulty in connecting the new morontia consciousness with the reviving memory of your previous identity. Notwithstanding the continuity of personal selfhood, much of the mortal life would at first seem to be a vague and hazy dream. But time will clarify many mortal associations.

112:5.22 (1235.4) The Thought Adjuster will recall and rehearse for you only those memories and experiences which are a part of, and essential to, your universe career. If the Adjuster has been a partner in the evolution of aught in the human mind, then will these worth-while experiences survive in the eternal consciousness of the Adjuster. But much of your past life and its memories, having neither spiritual meaning nor morontia value, will perish with the material brain; much of material experience will pass away as onetime scaffolding which, having bridged you over to the morontia level, no longer serves a purpose in the universe. But persona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ies are never scaffolding; mortal memory of personality relationships has cosmic value and will persist.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know and be known, and more, you will remember, and be remembered by, your onetime associates in the short but intriguing life on Urantia.

6. THE MORONTIA SELF

112:6.1 (1235.5) Just as a butterfly emerges from the caterpillar stage, so will the true personalities of human beings emerge on the mansion worlds, for the first time revealed apart from their onetime enshrouding in the material flesh. The morontia career in the local universe has to do with the continued elevation of the personality mechanism from the beginning morontia level of soul existence up to the final morontia level of progressive

지역우주 생애를 위한 너희의 모론시아 개인성 형태들에 관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너희는 개인성 현시의 모론시아 원형들이 자질로서 부여될 것이며, 이것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너희의 이해력을 뛰어 넘는 투자 자산이다. 그러한 형태들은 전적으로 실제적인 반면에, 너희가 지금 납득하는 물질적 계층의 에너지 원형들은 아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너희의 물질적인 육체가 인간이 탄생된 행성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우주 세계에서 동일한 목적에 봉사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물질적 육체-형태의 출현이 개인성 정체성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리적인 육체는 제한된 정도 내에서 개인성의 선천적인 자연본성의 어떤 것을 반영한다. 모론시아 양식은 더욱 더 그러하다.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필사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추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울 수도 있으나; 모론시아 삶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의 더 높은 차원들에서, 개인성 형태는 내적 개인의 본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외부적 형태와 내부 본성이 완벽한 정체화구현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점점 높아지는 영적 차원에 따라 점점 더 완전하게 사라간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오르본톤에 있는 주(主) 영이 갖는 조화우주-마음 자질의 네바돈 변형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소멸된 필사자 지능은, 창조 영의 확실적인 마음 순환회로들과 동 떨어져, 초점화구현된 우주 실존개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필사자 마음의 의미들과 가치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마음의 특정한 위상은 생존되는 혼 속에서 계속된다; 이전의 인간 마음의 어떤 체험적 가치들은 조절자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았던 것으로서, 인간 삶의 기록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최종적인 평가와 관계되는 존재들, 세라핌천사로부터 우주 검열자까지 그리고 아마도 최극자 너머까지 확장되는 수많은 존재들안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기록들과 함께, 지역우주 안에서 그대로 존속된다.

창조제 의지작용은 마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물질적 지능의 결손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생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상승하는 개인성은 인간 삶으로부터 선천적인 성격 원형들에 의해 그리고 모론시아 모타의 새롭게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 대부분 안내된다. 그리고 맨션계의 행위로의 이 안내들은 모론시아 삶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상승하는 개인성의 충분히 자란 의지적 표현으로서 모론시아 의지의 창발 이전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능한다.

지역우주에서 인간 실존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에 필적할 만큼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다. 모론시아 마음은 이 조화우주 마음과의 직접적인 접촉

spirituality.

112:6.2 (1235.6) It is difficult to instruct you regarding your morontia personality forms for the local universe career. You will be endowed with morontia patterns of personality manifestability, and these are investments which, in the last analysis, are beyond your comprehension. Such forms, while entirely real, are not energy patterns of the material order which you now understand. They do, however, serve the same purpose on the local universe worlds as do your material bodies on the planets of human nativity.

112:6.3 (1236.1) To a certain extent, the appearance of the material body-form is responsive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ity identity; the physical body does, to a limited degree, reflect something of the inherent nature of the personality. Still more so does the morontia form. In the physical life, mortals may be outwardly beautiful though inwardly unlovely; in the morontia life, and increasingly on its higher levels, the personality form will vary di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inner person. On the spiritual level, outward form and inner nature begin to approximate complete identification, which grows more and more perfect on higher and higher spirit levels.

112:6.4 (1236.2) In the morontia estate the ascending mortal is endowed with the Nebadon modification of the cosmic-mind endowment of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The mortal intellect, as such, has perished, has ceased to exist as a focalized universe entity apart from the undifferentiated mind circuits of the Creative Spirit. But the meanings and values of the mortal mind have not perished. Certain phases of mind are continued in the surviving soul; certain experiential values of the former human mind are held by the Adjuster; and there persist in the local universe the records of the human life as it was lived in the flesh, together with certain living registrations in the numerous beings who are concerned with the final evaluation of the ascending mortal, beings extending in range from seraphim to Universal Censors and probably on beyond to the Supreme.

112:6.5 (1236.3) Creature volition cannot exist without mind, but it does persist in spite of the loss of the material intellect. During the times immediately following survival, the ascending personality is in great measure guided by the character patterns inherited from the human life and by the newly appearing action of morontia mota. And these guides to mansonia conduct function acceptably in the early stages of the morontia life and prior to the emergence of morontia will as a full-fledged volitional expression of the ascending personality.

112:6.6 (1236.4) There are no influences in the local universe career comparable to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human existence. The morontia

에 의하여, 이 조화우주 마음이 지역우주 지성의 창조적 근원에—신성한 사명활동자—의해 수정되고 변형되듯이, 이에 따라 진화해야만 한다.

죽음 이전의 필사자 마음은 조절자 현존으로부터 자아-의식적으로 독립적이다; 보조 마음은 오직 그것이 작동되도록 연관된 물질-에너지 원형틀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초월적으로 보조하는 모론시아 혼은 물질-마음 기능구조가 제거되었을 때에는 조절자 없이 자아-의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아무튼, 이 진화하는 혼은 전에 연관된 보조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유래된 계속적인 성격을 소유하며, 그리고 이 성격은 원형틀이 되돌아오는 조절자에 의해 그로서 힘을 얻게 될 때 활성화된 기억이 되어간다.

기억의 지속성은 기원적 자아신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명이다; 그것은 개인성의 지속과 확대에 대한 완벽한 자아-의식에 필수적이다. 조절자 없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인간의 기억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세라핌천사 연관-동료의 지시에 의존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융합 필사자들의 모론시아 혼은 제한이 없다. 기억의 원형틀은 혼 속에 존속하지만, 이 원형틀이 계속되는 기억으로 즉시 자아-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以前) 조절자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 조절자가 없이 생존된 필사자는 이전(以前) 실존의 의미들과 가치들의 기억 의식을 다시 탐구하고 다시 배우고, 도로 붙잡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존될 가치가 있는 혼은 자아신분 정체성이 있던 이전의 자리인, 물질적 지능의 양적 질적 행동과 동기들 둘 모두를 반영한다.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사자 마음은 지혜의 영의 지도로 통합된 일곱 개의 보조 마음-영들의 감독 하에 모론시아 이전의 우주 생애를 시작한다. 그 후에, 모론시아 이전에 성취하는 일곱 순환계를 완성함에 따라서, 보조 마음위에 주어진 모론시아 마음 자질수여의 초(超)부담(負擔)은 지역우주 진보의 영-이전(以前)의 생애 또는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게 한다.

창조체가 그가 태어난 행성을 떠날 때, 그는 보조자의 사명활동을 뒤로하고 떠나며, 모론시아 지능에 의존하게 될 뿐이다. 상승자가 지역우주를 떠날 때에, 그는 모론시아 차원을 넘어서, 실존으로서의 영적 차원을 달성한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영적 실존개체는 그 다음에 오르본톤의 조화우주 마음의 직접 사명활동에 맞추어지게 된다.

mind must evolve by direct contact with cosmic mind, as this cosmic mind has been modified and translated by the creative source of local universe intellect — the Divine Minister.

112:6.7 (1236.5) Mortal mind, prior to death, is self-consciously independent of the Adjuster presence; adjutant mind needs only the associated material-energy pattern to enable it to operate. But the morontia soul, being superadjutant, does not retain self-consciousness without the Adjuster when deprived of the material-mind mechanism. This evolving soul does, however, possess a continuing character derived from the decisions of its former associated adjutant mind, and this character becomes active memory when the patterns thereof are energized by the returning Adjuster.

112:6.8 (1236.6) The persistence of memory is proof of the retention of the identity of original selfhood; it is essential to complete self-consciousness of personality continuity and expansion. Those mortals who ascend without Adjusters are dependent on the instruction of seraphic associates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memory; otherwise the morontia souls of the Spirit-fused mortals are not limited. The pattern of memory persists in the soul, but this pattern requires the presence of the former Adjuster to become *immediately* self-realizable as continuing memory. Without the Adjuster, it requires considerable time for the mortal survivor to re-explore and relearn, to recapture, the memory consciousness of the meanings and values of a former existence.

112:6.9 (1237.1) The soul of survival value faithfully reflects both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actions and motivations of the material intellect, the former seat of the identity of selfhood. In the choosing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he mortal mind enters upon its premorontia universe career under the tutelage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unifi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spirit of wisdom. Subsequently, upon the completion of the seven circles of premorontia attainment, the superimposition of the endowment of morontia mind upon adjutant mind initiates the prespiritual or morontia career of local universe progression.

112:6.10 (1237.2) When a creature leaves his native planet, he leaves the adjutant ministry behind and becomes solely dependent on morontia intellect. When an ascender leaves the local universe, he has attained the spiritual level of existence, having passed beyond the morontia level. This newly appearing spirit entity then becomes attuned to the direct ministry of the cosmic mind of Orvonton.

제 7 장. 조절자 융합

생각 조절자와의 융합은 그 전에는 오직 가능

7. ADJUSTER FUSION

112:7.1 (1237.3) Thought Adjuster fusion imparts

성만 있었던 개인성에게 영원한 실재성을 준다. 이 새로운 자질들 중에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신성 본질특성의 정착, 과거-영원의 체험과 기억, 불멸성, 그리고 분별화된 잠재적 절대성의 위상들이다.

너희가 일시적인 형태 속에서 가졌던 이 땅에서의 과정이 모두 지나갈 때, 너희는 더 나은 세계의 해안에서 깨어날 것이며, 결국에는 영원한 포용 속에서 신실한 너희의 조절자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은 하느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 유한 창조체 진화의 신비를 이루지만, 그것은 영원히 진실이다. 융합은 상승자별의 거룩한 구체의 비밀이며, 신(神)의 영과 융합되는 체험을 하였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창조체도 시간의 창조체 정체성이 파라다이스 신(神)의 영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때에 공동-결합된 실재적 가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절자와의 융합은 대개 상승자가 지역우주 체계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의 초월로써 원래의 출생된 행성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맨션세계들 중의 하나 또는 그 체계의 본부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별자리에 머무는 시간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또는 특별한 경우에, 상승자가 지역우주 본부에 있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조절자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그 개인성의 영원한 행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랜 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세계와 모른시아 세계에서 비교적 짧고 집약된 시험을 통과한다.

조절자와의 융합은 인간 본성이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최종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초우주가 명령을 공포될 때까지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공인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융합된 개인성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지역우주의 한계를 벗어나 언젠가 초우주의 본부로 나아가게 하는 출국허가가 이루어지며, 그로부터 시간 속의 순례자는 먼 훗날, 하보나 중앙우주로 향하는 긴 비행과 신(神) 탐험을 위한 긴 여행을 위해 2품천사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자아신분은 물질적이다; 그것은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사물이며 그 자체로는 물질적 실존의 법칙에 종속된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것의 변화에 민감하다. 생존의 결정들은 여기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모른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하나의 새롭고 보다 영구적인 우주적 실체가 되며, 그것의 계속적인 성장은 우주들의 마음과 영 순환회로들에 대한 그 증가하는 조율에 근거를 둔다. 생존의 결정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자아가 영적 차원을 달성

eternal actualities to personality which were previously only potential. Among these new endowments may be mentioned: fixation of divinity quality, past-eternity experience and memory, immortality, and a phase of qualified potential absoluteness.

112:7.2 (1237.4) When your earthly course in temporary form has been run, you are to awaken on the shores of a better world, and eventually you will be united with your faithful Adjuster in an eternal embrace. And this fusion constitutes the mystery of making God and man one, the mystery of finite creature evolution, but it is eternally true. Fusion is the secret of the sacred sphere of Ascendition, and no creature, save those who have experienced fusion with the spirit of Deity, can comprehend the true meaning of the actual values which are conjoined when the identity of a creature of time becomes eternally one with the spirit of Paradise Deity.

112:7.3 (1237.5) Fusion with the Adjuster is usually effected while the ascender is resident within his local system. It may occur on the planet of nativity as a transcendence of natural death; it may take place on any one of the mansion worlds or on the headquarters of the system; it may even be delayed until the time of the constellation sojourn; or, in special instances, it may not be consummated until the ascender is on the local universe capital.

112:7.4 (1237.6) When fusion with the Adjuster has been effected, there can be no future danger to the eternal career of such a personality. Celestial beings are tested throughout a long experience, but mortals pass through a relatively short and intensive testing on the evolutionary and morontia worlds.

112:7.5 (1237.7) Fusion with the Adjuster never occurs until the mandates of the superuniverse have pronounced that the human nature has made a final and irrevocable choice for the eternal career. This is the at-onement authorization, which, when issued, constitutes the clearance authority for the fused personality eventually to leave the confines of the local universe to proceed sometime to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from which point the pilgrim of time will, in the distant future, enseconaphim for the long flight to the central universe of Havona and the Deity adventure.

112:7.6 (1238.1) On the evolutionary worlds, selfhood is material; it is a thing in the universe and as such is subject to the laws of material existence. It is a fact in time and is responsive to the vicissitudes thereof. *Survival decisions must here be formulated.* In the morontia state the self has become a new and more enduring universe reality, and its continuing growth is predicated on its increasing attunement to the mind and spirit circuits of the universes. *Survival decisions are*

할 때, 그것은 우주 안에서 확고한 가치를 이루며, 이 새로운 가치는 생존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데, 그 사실은 생각 조절자와의 영원한 융합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리고 참된 우주 가치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창조체는 가장 높은 우주적 가치—하느님—를 찾기 위한 잠재에서 해방된다.

그러한 융합된 존재들은 우주 반응에 있어서 2중이다: 그들은 세라핌천사들과 아주 다르지 않은, 따로 떨어진 모론시아 개별존재들이다, 그들은 또한 잠재적으로 파라다이스 최종자 계층의 존재이다.

그러나 융합된 개별존재는 실제로 하나의 개인성이며, 하나의 존재인데, 그의 합일은 우주의 그 어떤 지성에 의해 분석되는 모든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지역우주의 법정을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통과하면서, 그 중에 아무도 사람이거나 조절자를, 하나를 다른 이와 분리하여, 정체성을 확인 할 수가 없으며, 너희는 너희 지역우주의 아버지이신 네바돈의 주권자 앞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간의 우주에서 그의 창조적 아버지신 분이 너희 삶의 사실을 가능하게 하였던, 바로 그 존재의 손으로부터, 너희가 결국에는 우주 아버지를 찾는 너희의 초우주 생애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신임장을 수여 받게 될 것이다.

승리한 조절자가 인간성에 대한 숭고한 봉사에 의하여 개인성을 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웅망스러운 인간이 조절자 닮아가기를 성취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불멸성을 획득하고 있는가? 둘 모두 아니다; 단지 그들은 최극자의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독특한 계층들 중 하나의 구성원이 갖는 진화를 함께 성취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유능한, 더 자라고 발전할만한 자이며, 언제나 위를 향하고 숭고한 상승을 하보나의 일곱 영역들이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한 때 땅에서 기원된 혼이,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실재 개인성에 대한 경배 넘치는 인지(認知)속에서 있게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엄청난 상승에 두루 생각 조절자는 미래에 대한 신성한 서약이며 상승하는 필사자의 충분한 영적 안정이다. 그 동안 필사자의 자유의지의 현존은, 조절자에게, 신성하며 무한한 본성의 해방을 위한 영원한 통로를 잘 제공해준다. 이제 이들 두 정체성들은 하나가 되었다; 시간 또는 영원의 어떤 사건도 사람과 조절자를 분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

조절자-융합이 이루어지는 세계들에서 신비감시자의 운명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그것—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과 동일하다. 조절자도 필사자도 상대방의 충분한 협력과 신실한 도움 없이는 그 독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비범한 동반

now being confirmed. When the self attains the spiritual level, it has become a secure value in the universe, and this new value is predicated upon the fact that *survival decisions have been made*, which fact has been witnessed by eternal fusion with the Thought Adjuster. And having achieved the status of a true universe value, the creature becomes liberated in potential for the seeking of the highest universe value — God.

112:7.7 (1238.2) Such fused beings are twofold in their universe reactions: They are discrete morontia individuals not altogether unlike seraphim, and they are also beings in potential on the order of the Paradise finaliters.

112:7.8 (1238.3) But the fused individual is really one personality, one being, whose unity defies all attempts at analysis by any intelligence of the universes. And so, having passed the tribunals of the local universe from the lowest to the highest, none of which have been able to identify man or Adjuster, the one apart from the other, you shall finally be taken before the Sovereign of Nebadon, your local universe Father. And there, at the hand of the very being whose creative fatherhood in this universe of time has made possible the fact of your life, you will be granted those credentials which entitle you eventually to proceed upon your superuniverse career in quest of the Universal Father.

112:7.9 (1238.4) Has the triumphant Adjuster won personality by the magnificent service to humanity, or has the valiant human acquired immortality through sincere efforts to achieve Adjusterlikeness? It is neither; but they together have achieved the evolution of a member of one of the unique orders of the ascending personalities of the Supreme, one who will ever be found serviceable, faithful, and efficient, a candidate for further growth and development, ever ranging upward and never ceasing the supernal ascent until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have been traversed and the onetime soul of earthly origin stands in worshipful recognition of the actual personality of the Father on Paradise.

112:7.10 (1238.5) Throughout all this magnificent ascent the Thought Adjuster is the divine pledge of the future and full spiritual stabilization of the ascending mortal. Meanwhile the presence of the mortal free will affords the Adjuster an eternal channel for the liberation of the divine and infinite nature. Now have these two identities become one; no event of time or of eternity can ever separate man and Adjuster; they are inseparable, eternally fused.

112:7.11 (1238.6) On the Adjuster-fusion worlds the destiny of the Mystery Monitor is identical with that of the ascending mortal —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And neither Adjuster nor mortal can attain that unique goal without the full co-operation

자관계는 이 우주 시대의 모든 조화우주 현상 중에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놀라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조절자와 융합하는 때로부터, 상승자의 지위는 진화하는 창조체의 바로 그 지위이다. 인간 구성원이 개인성을 먼저 향유하였으며, 그리하여 개인성 인지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조절자보다 우위에 있다. 이 융합된 존재의 파라다이스 본부는 상승자별이고 신성별이 아니며, 하느님과 사람의 이 독특한 병합은 최종의 무리단까지의 모든 길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로 분류된다.

조절자가, 상승하는 필사자와 일단 융합하면, 그러한 조절자의 번호는 초우주의 기록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신성별의 기록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조절자의 등록은 최종의 무리단의 활동하는 우두머리인 그랜한다의 내부 법정의 비밀 순환계들로 옮겨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조절자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우주 아버지는 그 자신의 선물을 그의 물질적 창조체들에게 주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완성하시며; 그는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시고, 신성을 인간성에게 영원히 증여하시려는 그 계획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시게 된다. 이제 이렇게 사실화된 하느님과 천상의 동반자 관계 속에 선천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실재화하는 인간의 시도가 시작된다.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은 최종의 파라다이스 무리단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필사 동행자와의 영원한 연합에 동참하게 된 모든 조절자의 목표이기도 하다. 파라다이스의 최종자는 현재 초우주에 두루 많은 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는 일곱 개의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게 된 후에 그리고 유한 하느님이 현재 이 최극자 신(神)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부터 최종적으로 떠오르는 때의 먼 장래에, 그들은 다른 임무들, 보다 숭고한 임무들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너희는 중앙우주, 초우주들, 그리고 지역우주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정도까지 배워왔으며; 현재 이 멀리-퍼지는 창조체들을 다스리는 여러 개인성들 중 일부분에 관한 기원과 성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들어 왔다. 또한 너희는 첫 번째 외부 공간 차원에서 대우주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멀리에서 우주들의 엄청난 은하들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알려진 것을 들어왔다. 또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최극존재가 지금 외부 공간에 있는 미지의 영역들 속에서의 그의 계시되지 않은 제 3차 기능을 밝히고 있음이 암시되었다; 또한 너희는 파라다이스 무리단의 최종자들이 최극자의 체험적 자녀들임을 들었다.

and faithful help of the other. This extraordinary partnership is one of the most engrossing and amazing of all the cosmic phenomena of this universe age.

112:7.12 (1239.1) From the time of Adjuster fusion the status of the ascender is that of the evolutionary creature. The human member was the first to enjoy personality and, therefore, outranks the Adjuster in all matters concerned with the recognition of personality.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is fused being is Ascendington, not Divinington, and this unique combination of God and man ranks as an ascending mortal all the way up 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12:7.13 (1239.2) When once an Adjuster fuses with an ascending mortal, the number of that Adjuster is stricken from the records of the superuniverse. What happens on the records of Divinington, I do not know, but I surmise that the registry of that Adjuster is removed to the secret circles of the inner courts of Grandfanda, the acting head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112:7.14 (1239.3) With Adjuster fusion the Universal Father has completed his promise of the gift of himself to his material creatures; he has fulfilled the promise, and consummated the plan, of the eternal bestowal of divinity upon humanity. Now begins the human attempt to realize and to actualize the limitless possibilities that are inherent in the supernal partnership with God which has thus factualized.

112:7.15 (1239.4) The present known destiny of surviving mortals is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this is also the goal of destiny for all Thought Adjusters who become joined in eternal union with their mortal companions. At present the Paradise finalizers are working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in many undertakings, but we all conjecture that they will have other and even more supernal tasks to perform in the distant future after the seven superuniverses have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when the finite God has finally emerged from the mystery which now surrounds this Supreme Deity.

112:7.16 (1239.5) You have been instructed to a certain extent abou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central universe, the superuniverses, and the local universes; you have been told something about the character and origin of some of the various personalities who now rule these far-flung creations. You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re are in process of organization vast galaxies of universes far out beyond the periphery of the grand universe, in the first outer space level. It has also been intimated in the course of these narratives that the Supreme Being is to disclose his unrevealed tertiary function in these now uncharted regions of outer space; and you have also been told that the finalizers of the Paradise

우리는 조절자와 융합된 필사자들이, 그들의 최종자 연관-동료들과 함께, 최초의 외부 공간 차원의 우주들의 관리-행정에 어떤 방법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거대한 은하계들이 누군가가 거주하는 우주들이 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관리-행정자들 중에서 파라다이스의 최종자가 발견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해하는데, 그들의 본성들은 창조체와 창조자의 혼합의 조화우주 결과이다.

얼마나 굉장한 모험인가! 얼마나 낭만적인 사건인가! 최극자의 자녀들, 개인성구현되고 인간화된 이 조절자들, 조절자로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된 이 필사자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본질이 가장 높게 알려진 현시활동과 우주 아버지를 이해하고 성취할 능력이 있는 지적 생명의 가장 낮은 형태의 이 영원한 관계적-연합 그리고 신비스러운 화합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창조. 우리는 그러한 합병된 존재들, 창조자와 창조체의 그러한 동반자관계들이 첫 외부 공간 차원의 미래 우주들에 두루 실존하게 될 지적 생명의 어떤 그리고 모든 형태들의 뛰어난 통치자들, 비길 데 없는 관리-행정자들, 그리고 납득하고 동정심이 많은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필사자들이 땅에서,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너희의 구조는 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만일 너희가 진실로 원한다면, 세월의 유산은 분명히 너희의 것이며, 언젠가는 너희가 모든 개인성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 그리고 체험에서의 최극자 하느님의 자녀라는, 너희의 진정한 성격으로 우주에 두루 봉사할 것이다.

[오르본톤의 단독 메신저에 의해 제시되었음]

corps are the experiential children of the Supreme.

112:7.17 (1239.6) We believe that the mortals of Adjuster fusion, together with their finaliter associates, are destined to function in some manne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We have not the slightest doubt that in due time these enormous galaxies will become inhabited universes. And we are equally convinced that among the administrators thereof will be found the Paradise finaliters whose natures are the cosmic consequence of the blending of creature and Creator.

112:7.18 (1239.7) What an adventure! What a romance! A gigantic creation to be administered by the children of the Supreme, these personalized and humanized Adjusters, these Adjusterized and eternalized mortals, these mysterious combinations and eternal associations of the highest known manifestation of the essenc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 lowest form of intelligent life capable of comprehending and attaining the Universal Father. We conceive that such amalgamated beings, such partnerships of Creator and creature, will become superb rulers, matchless administrators, and understanding and sympathetic directors of any and all forms of intelligent life which may come into existence throughout these future universes of the first outer space level.

112:7.19 (1240.1) True it is, you mortals are of earthly, animal origin; your frame is indeed dust. But if you actually will, if you really desire, surely the heritage of the ages is yours, and you shall someday serve throughout the universes in your true characters — children of the Supreme God of experience and divine sons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personalities.

112:7.20 (1240.2) [Presented by a Solitary Messenger of Orvonton.]

제 113 편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

⇨ 112

유랜시아 책

114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3 편 세라핌천사 운명의 수호자

섹션

소개

제 1 장. 수호천사

제 2 장. 운명 수호자

제 3 장.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활동 영역

제 5 장. 필사자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

제 6 장. 죽음 이후의 수호천사

제 7 장. 세라핌천사와 상승하는 생애

PAPER 113

SERAPHIC GUARDIANS OF DESTINY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uardian Angels

2. The Destiny Guardians

3. Relation to Other Spirit Influences

4. Seraphic Domains of Action

5. Seraphic Ministry to Mortals

6. Guardian Angels after Death

7. Seraphim and the Ascendant Career

소개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과 공간의 메신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시해 왔으니, 우리는 필사자들의 높임과 완전을 위하여 영적 진보의 광대한 생존 계획의 그 모든 것이 마련되어 온, 그러한 개별 필사자에 대한 사명활동에 헌신된 세라핌천사들, 수호천사에 관하여 고찰하게 된다. 유랜시아에서 과거의 시대들에 있어서, 이 운명 수호자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천사들의 집단이었을 것이다. 행성의 세라핌천사들은 생존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었다. 항상 따라다니는 이 세라핌천사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에서 필사 사람의 영적인 조력자로 기능해 왔다. 많은 계시들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말씀이 있었다.”; 하늘로부터의 명령들 대부분이 “천사들의 사명활동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왔다.”

세라핌천사들은 전통적인 하늘의 천사들이다;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너희를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하는 사명활동하는 영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지능이 존재하던 초기부터 유랜시아에서 사명활동해 왔다.

INTRODUCTION

113:0.1 (1241.1) HAVING presented the narratives of the Ministering Spirits of Time and the Messenger Hosts of Space, we com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guardian angels, seraphim devoted to the ministry to individual mortals, for whose elevation and perfection all of the vast survival scheme of spiritual progression has been provided. In past ages on Urantia, these destiny guardians were about the only group of angels that had recognition. The planetary seraphim are indeed ministering spirits sent forth to do service for those who shall survive. These attending seraphim have functioned as the spiritual helpers of mortal man in all the great event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 many a revelation “the word was spoken by angels”; many of the mandates of heaven have been “received by the ministry of angels.”

113:0.2 (1241.2) Seraphim are the traditional angels of heaven; they are the ministering spirits who live so near you and do so much for you. They have ministered on Urantia since the earliest times of human intelligence.

제 1 장. 수호천사

1. THE GUARDIAN ANGELS

수호천사들에 대한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다; 인간 존재들의 일정한 무리들은 실제로 개인 천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가, 이것을 아셨기에, 하늘왕국의 자녀 이야기에서 말하였다; “이 어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아버지의 영의 현존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기원적으로는, 세라핌천사들이 유란시아의 분리된 종족들에게 명확하게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증여된 이후로는, 그들이 인간의 지능과 영성(靈性) 그리고 운명에 따라서 배정된다. 지적으로 볼 때, 인류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구분된다:

1. 정상 이하의 마음 소유자들—정상적인 의지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자들;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 이 부류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을 포용한다; 신(神)에 대한 지적 경배를 드릴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정상 이하의 존재들은 구체에서의 삶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그들에게 확대되었음을 증언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섬기도록 배정된 일단의 세라핌천사들, 많은 케루빔들과 함께 하는 하나의 집단을 소유한다.

2. 평균적인, 정상적인 유형의 인간 마음 소유자들.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들은 인간 진보와 영적 발전의 순환계를 만드는 데에서의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일곱 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3. 정상 이상의 마음 소유자들—영적인 성취에 있어서 위대한 결정과 확실한 잠재를 가진 자들; 그들 속에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다소간의 접촉을 누리는 자들; 운명의 다양한 예비무리단들의 구성원들. 어떤 인간이 우연히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만약에 그러한 개별존재가 여러 운명예비무리단들 중 어떤 것이라도 소속되게 된다면, 바로 그 때 거기에서, 개인적인 세라핌천사가 배정되고, 그 때부터 이 세상의 생애가 완결되어질 때까지, 그 필사자는 수호천사의 계속적인 섬김과 끊임없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인간 존재가 최극 결정을 내릴 때, 조절자와의 실제적인 약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수호자가 즉시 그 혼에게 배정된다.

소위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사명활동에 있어서, 세라핌천사의 배정은 지성과 영성의 순환계들에 대한 인간 달성에 따라 내려진다. 너희는 일곱 번째 순환계 속에 필사로서 수여된 너희 마음속에서 출발하고 자아-납득과 자아-정복 그리고 자아-정복의 임무 속에서 안쪽으로 여행하며, 내주 하는 조절자와 상대적 접촉과 교제를 이루는 첫 번째 또는 내부 순환계에 당도할 때까지 (만약에 자연적인 죽음에 너희 생애를 종료시켜서 너희의 투쟁을 맨션세계들로 옮겨가지

113:1.1 (1241.3) The teaching about guardian angels is not a myth; certain groups of human beings do actually have personal angels. It was in recognition of this that Jesus, in speaking of the children of the heavenly kingdom, said: “Take heed that you despise not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I say to you, their angels do always behold the presence of the spirit of my Father.”

113:1.2 (1241.4) Originally, the seraphim were definitely assigned to the separate Urantia races. But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they are assigned in accordance with human intelligence, spirituality, and destiny. Intellectually, mankind is divided into three classes:

113:1.3 (1241.5) 1. The subnormal minded — those who do not exercise normal will power; those who do not make average decisions. This class embraces those who cannot comprehend God; they lack capacity for the intelligent worship of Deity. The subnormal beings of Urantia have a corps of seraphim, one company, with one battalion of cherubim, assigned to minister to them and to witness that justice and mercy are extended to them in the life struggles of the sphere.

113:1.4 (1241.6) 2. The average, normal type of human mind. From the standpoint of seraphic ministry, most men and women are grouped in seven classes in accordance with their status in making the circles of human progress and spiritual development.

113:1.5 (1241.7) 3. The supernormal minded — those of great decision and undoubted potential of spiritual achievement; men and women who enjoy more or less contact with their indwelling Adjusters; members of the various reserve corps of destiny. No matter in what circle a human happens to be, if such an individual becomes enrolled in any of the several reserve corps of destiny, right then and there, personal seraphim are assigned, and from that time until the earthly career is finished, that mortal will enjoy the continuous ministry and unceasing watchcare of a guardian angel. Also, when any human being makes *the* supreme decision, when there is a real betrothal with the Adjuster, a personal guardian is immediately assigned to that soul.

113:1.6 (1242.1) In the ministry to so-called normal beings, seraphic assignment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human attainment of the circles of intellectuality and spirituality. You start out in your mind of mortal investment in the seventh circle and journey inward in the task of self-understanding, self-conquest, and self-mastery; and circle by circle you advance until (if natural death does not terminate your career and transfer your struggles to the mansion worlds) you

않는다면) 한 순환계씩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첫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순환계에 있는 인간 존재들은 1,000명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배정된 한 중대의 보조 케루빔들과 함께 한 명의 수호천사를 갖는다. 여섯 번째 순환계에서는, 한 중대의 케루빔들과 함께 세라핌천사 한 쌍이 500명 집단의 이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안내하도록 배정된다. 다섯 번째 순환계가 달성되면, 인간 존재들은 약 100명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한 중대의 케루빔들과 함께 한 쌍의 수호 세라핌천사가 책임을 맡게 된다. 네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면, 필사 존재들은 10명의 집단으로 묶여지고, 한 쌍의 세라핌천사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한 중대의 케루빔들의 보조를 받는다.

필사자 마음이 동물적 유산의 타성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 지성의 순환계를 달성하고 영성을 획득하게 되면, 하나의 개인적 천사가 (실체에서 둘) 상승하는 이 필사자에게 그 후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배정된다. 그리하여 이 인간 혼들은, 언제까지나-제시되어 있다고 점점 더 효력을 발휘하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에 덧붙여서, 세 번째 순환계를 완결하고 두 번째를 지나 첫 번째 순환계를 달성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수고들에서, 이들 개인적 운명의 수호자들의 전심전력의 원조를 받아들인다.

제 2 장. 운명 수호자

세라핌천사들은 세 가지 성취, 즉 하느님과-같은이 되기로 최종 결정을 했거나, 세 번째 순환계에 들어갔거나, 혹은 운명 예비 무리단의 하나에 소집되는 그러한 성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인간 혼의 관계적-연합에 배정되는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운명의 수호자로 알려지지 않는다.

인종들의 진화에 있어서 운명의 수호자는 정복할 필요가 있는 순환계를 달성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존재에게 배정된다. 유란시아에서 개인적인 수호자를 확보한 첫 번째 필사자는 란토웁이었는데, 그는 오래 전에 적색 인종의 현자(賢者)였다.

천사들의 모든 배정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세라핌천사들의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러한 임명들은 쌍을 이루는 천사의 지위—세라핌천사의 체험과 기술 그리고 지혜에 비추어서—에 따라 그리고 인간적 필요성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봉사한 세라핌천사들, 더 많은 체험을 가졌고 시험을 받은 유형들만이 운명 수호자들로 배정된다. 많은 수호자들은 비(非)조절자와 융합하는 계열들에 해당하는 그 세계들에서 가치 있는 많은 체험들을 획득하였다. 조절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한 번의 생애 동안 이 존재들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배정을 기다리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들은 다른 세계들에서 이미 이러한 실천적 체

reach the first or inner circle of relative contact and commun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113:1.7 (1242.2) Human beings in the initial or seventh circle have one guardian angel with one company of assisting cherubim assigned to the watchcare and custody of one thousand mortals. In the sixth circle, a seraphic pair with one company of cherubim is assigned to guide these ascending mortals in groups of five hundred. When the fifth circle is attained, human beings are grouped in companies of approximately one hundred, and a pair of guardian seraphim with a group of cherubim is placed in charge. Upon attainment of the fourth circle, mortal beings are assembled in groups of ten, and again charge is given to a pair of seraphim, assisted by one company of cherubim.

113:1.8 (1242.3) When a mortal mind breaks through the inertia of animal legacy and attains the third circle of human intellectuality and acquired spirituality, a personal angel (in reality two) will henceforth be wholly and exclusively devoted to this ascending mortal. And thus these human souls, in addition to the ever-present and increasingly efficient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receive the undivided assistance of these personal guardians of destiny in all their efforts to finish the third circle, traverse the second, and attain the first.

2. THE DESTINY GUARDIANS

113:2.1 (1242.4) Seraphim are not known as guardians of destiny until such time as they are assigned to the association of a human soul who has realized one or more of three achievements: has made a supreme decision to become Godlike, has entered the third circle, or has been mustered into on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113:2.2 (1242.5) In the evolution of races a guardian of destiny is assigned to the very first being who attains the requisite circle of conquest. On Urantia the first mortal to secure a personal guardian was Rantowoc, a wise man of the red race of long ago.

113:2.3 (1242.6) All angelic assignments are made from a group of volunteering seraphim, and these appointments are always in accordance with human needs and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angelic pair — in the light of seraphic experience, skill, and wisdom. Only seraphim of long service, the more experienced and tested types, are assigned as destiny guards. Many guardians have gained much valuable experience on those worlds which are of the non-Adjuster fusion series. Like the Adjusters, the seraphim attend these beings for a single lifetime and then are liberated for new assignment. Many guardians on Urantia have had this previous practical experience on other worlds.

힘을 겪었다.

인간 존재들이 생존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수호자들은 같은 행성에서 비슷한 능력으로 반복하여 여러 번 봉사하게 된다. 세라핌천사들은 개별 세계들을 위하여 정서적 관심을 발전시키며 그들이 매우 가깝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관해 온 특정한 인종들과 여러 유형의 필사 창조체들을 향하여 특별한 애정을 지닌다.

천사들은 연관되는 그들의 인간을 위하여 늘 함께 하는 애정을 개발한다; 만일 너희가 세라핌천사들을 단지 가시화할 수만 있어도, 너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개발한다. 물질적 몸체가 벗겨지고 영 형태가 주어지면, 너희는 개인성의 많은 속성들에서 천사들과 아주 가까울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대부분의 감정들을 공유하며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체험한다. 너희를 움직이는 감정 중에서 그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유일한 것은, 유란시아의 평균 거주민의 정신적 일생에서 것처럼 커다란 부피를 차지하는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다. 천사들은 너희가 어째서, 너희의 높은 지적 힘이,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종교적 신앙이, 그렇게 두려움에 지배되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허용하는지, 어째서 공포와 불안의 정신없는 공황에 철저히 사기가 떨어지고 문란해지도록 그렇게 허용하는지, 실제로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

모든 세라핌천사들은 개별적인 이름을 가지지만, 세상 봉사에 대한 배정에서의 기록에는,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행성 번호에 따라서 등록된다. 우주 본부에서는 그들은 이름과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 지금 이 접촉하는 교통에서 사용된 인간 주체의 운명 수호자는 네바돈의 182,314번째 세라핌천사 총군의 37번 무리단, 6군단, 384단위연대, 4대대, 126중대, 17집단의 3번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이 세라핌천사와 이 인간 주체에게 주어진 현재 행성 배정 번호는 3,641,852번이다.

개인적 수호자관계의 사명활동에서, 운명 수호자를 정하는 천사들의 배정에서, 세라핌천사들은 항상 자신들의 봉사로 맡으려고 자원한다. 지금 이 방문행위가 이루어진 도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필사자가 최근에 운명예비무리단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모든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수호천사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100명 이상의 세라핌천사들이 배정받으려고 하였다. 행성 감독자는 보다 체험이 많은 12명의 개별존재들을 선택하였고 뒤이어서 그들은 이 인간 존재의 삶의 여정에 두루 그를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했던 세라핌천사를 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동등하게 분별화된 어떤 세라핌천사 한 쌍을 선택하였다; 이 세라핌천사 쌍의 하나는 항상 근무 중일 것이다.

세라핌천사의 임무는 끊임없는 것이 되겠지만, 천사의 쌍 중에 어느 한 쪽도 모든 봉사 임무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케루빔들과 마찬가지로, 세라핌천사들은 대개 쌍을 이루어 봉사하지만, 그들

113:2.4 (1243.1) When human beings fail to survive, their personal or group guardians may repeatedly serve in similar capacities on the same planet. The seraphim develop a sentimental regard for individual worlds and entertain a special affection for certain races and types of mortal creatures with whom they have been so closely and intimately associated.

113:2.5 (1243.2) The angels develop an abiding affection for their human associates; and you would, if you could only visualize the seraphim, develop a warm affection for them. Divested of material bodies, given spirit forms, you would be very near the angels in many attributes of personality. They share most of your emotions and experience some additional ones. The only emotion actuating you which is somewhat difficult for them to comprehend is the legacy of animal fear that bulks so large in the mental life of the average inhabitant of Urantia. The angels really find it hard to understand why you will so persistently allow your higher intellectual powers, even your religious faith, to be so dominated by fear, so thoroughly demoralized by the thoughtless panic of dread and anxiety.

113:2.6 (1243.3) All seraphim have individual names, but in the records of assignment to world service they are frequently designated by their planetary numbers. At the universe headquarters they are registered by name and number. The destiny guardian of the human subject used in this contactual communication is number 3 of group 17, of company 126, of battalion 4, of unit 384, of legion 6, of host 37, of the 182,314th seraphic army of Nebadon. The current planetary assignment number of this seraphim on Urantia and to this human subject is 3,641,852.

113:2.7 (1243.4) In the ministry of personal guardianship, the assignment of angels as destiny guardians, seraphim always volunteer their services. In the city of this visitation a certain mortal was recently admitted to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and since all such humans are personally attended by guardian angels, more than one hundred qualified seraphim sought the assignment. The planetary director selected twelve of the more experienced individuals and subsequently appointed the seraphim whom they selected as best adapted to guide this human being through his life journey. That is, they selected a certain pair of equally qualified seraphim; one of this seraphic pair will always be on duty.

113:2.8 (1243.5) Seraphic tasks may be unremitting, but either of the angelic pair can discharge all ministering responsibilities. Like cherubim, seraphim usually serve in pairs, but unlike their

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연관-동료들과는 달리, 세라핌천사들은 때때로 홀로 일하기도 한다. 실천적으로, 인간 존재들과의 모든 접촉에서 그들은 개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두 천사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오직 우주들의 보다 높은 순환회로들에서 교통과 봉사할 때이다.

세라핌천사 한 쌍이 수호 임무의 배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 인간 존재의 여생동안 봉사한다. 존재에서의 보완자(두 천사들 중 하나)는 떠맡은 일의 기록자가 된다. 보완적인 이 세라핌천사들은 진화하는 세계들의 필사자들에게 대한 기록하는 천사들이다. 이 기록들은 세라핌천사 수호자들과 항상 연관하는 케루빔 한 쌍(하나의 케루빔과 하나의 사노빔)에 의해 보관되지만, 이들 기록은 세라핌천사의 하나에 의해 항상 후원된다.

휴식의 목적으로 그리고 우주 순환회로들의 생명 에너지 재충전의 목적으로, 그 수호자는 자신의 보완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휴식하였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는 연관-동료 케루빔 이 기록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보완하는 세라핌천사가 비슷하게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그렇게 되었다.

제 3 장.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운명 수호자가 그녀의 필사자 주체를 위하여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진화하는 물질적 창조체의 마음과 혼 위에 내주하고 둘러싸고 그리고 부딪쳐오는 수많은 미(未)개인적 영 영향들의 개인적 조화-협동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개인성이고, 비(非)개인적 영과 전(前)개인적 실존개체들에게는 이처럼 고도로 물질적이고 단편적인 개인 마음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수호하는 천사의 사명활동에서, 이 모든 영향들은 다소 통합되고, 진화하는 개인성의 확대하는 도덕적 본성으로 더욱 가깝게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다.

더욱 특별하게, 이 세라핌천사 수호자는 물리 통제자들과 보조 마음-영들의 권역에서부터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성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전제(全在)하는 영 현존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리자와 영향들과 상관관계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무한한 영의 이들 광대한 사명활동들을 것처럼 통합시키고 더욱 개인적으로 만들고나서, 세라핌천사들은 공동 행위자의 집대성된 영향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 현존들과 상관시키는 일을 착수한다.

조절자는 아버지의 현존이다; 진리의 영은 아들들의 현존이다. 이러한 증여된 신성한 자질들은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에 의해 인간의 영적

less advanced associates, the seraphim sometimes work singly. In practically all their contacts with human beings they can function as individuals. Both angels are required only for communication and service on the higher circuits of the universes.

113:2.9 (1243.6) When a seraphic pair accept guardian assignment, they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life of that human being. The complement of being (one of the two angels) becomes the recorder of the undertaking. These complemental seraphim are the recording angels of the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records are kept by the pair of cherubim (a cherubim and a sanobim) who are always associated with the seraphic guardians, but these records are always sponsored by one of the seraphim.

113:2.10 (1244.1) For purposes of rest and recharging with the life energy of the universe circuits, the guardian is periodically relieved by her complement, and during her absence the associated cherubim functions as the recorder, as is also the case when the complemental seraphim is similarly absent.

3. RELATION TO OTHER SPIRIT INFLUENCES

113:3.1 (1244.2)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 destiny guardian does for her mortal subject is to effect a personal co-ordination of the numerous impersonal spirit influences which indwell, surround, and impinge upon the mind and soul of the evolving material creature. Human beings are personalities, and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nonpersonal spirits and prepersonal entities to make direct contact with such highly material and discretely personal minds. In the ministry of the guarding angel all of these influences are more or less unified and made more nearly appreciable by the expanding moral nature of the evolving human personality.

113:3.2 (1244.3) More especially can and does this seraphic guardian correlate the manifold agencies and influences of the Infinite Spirit, ranging from the domain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and the adjutant mind-spirits up to the Holy Spirit of the Divine Minister and to the Omnipresent Spirit presence of the Paradise Third Source and Center. Having thus unified and made more personal these vast ministr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seraphim then undertakes to correlate this integrated influence of the Conjoint Actor with the spirit presences of the Father and the Son.

113:3.3 (1244.4) The Adjuster is the presence of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the presence of the Sons. These divine endowments are unified and

체험이라는 보다 낮은 차원들에서 통합되고 조화-협동된다. 섬기는 천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필사 창조체들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 속에서 병합하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모른시아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생존된 필사자의 마음 원형들과 기억 공식들과 혼 실체들에 대한 개인적 보호관리자가 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하는 자녀들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주의 한 차원으로부터 더 높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이 위상 기간 동안에, 인간 창조체를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의 마지막 이동하는 잠에 들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통과할 때도, 한 높은 초(超)천사가 마찬가지로 창조체 정체성의 보호관리자로서 그리고 개인적 고결한-순수성의 보증인으로서 그 이동에 동참한다.

영적 차원 위에서, 세라핌천사들이 달리 보면 미(未)개인적이고 그리고 전(前)개인적인 많은 우주의 사명활동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들은 조화-협동자들이다. 지적 차원 위에서, 그들은 마음과 모른시아의 상관자들이다; 그들은 통역자들이다. 그리고 물리적 차원 위에서, 그들은 주(主)물리통제자들과의 그들의 연락을 통하여 그리고 중도(中途) 창조체들의 협력하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지상의 환경을 조종한다.

이것이 수행(隨行)하는 세라핌천사에 대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기능에 관한 하나의 설명이다; 창조 되었으나 인간속성의 우주 차원보다 약간 높은, 것처럼 하급의 천사 개인성이 어떻게 해서 것처럼 어렵고도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이 경이로운 사명활동은 최극존재,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의 실재화하는 신(神)의 인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작용에 따라서 어떤 밝혀지지 않는 수단으로 촉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다. 최극존재 안에서 그리고 그를 거치는 진보적 생존의 전체 영역에 두루, 세라핌천사들은 계속되는 필사자 진보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제 4 장. 세라핌천사의 활동 영역

수호 세라핌천사들은, 필사자 마음을 기원시킨 동일한 근원, 창조 영으로부터 발생되었지만, 마음은 아니다. 세라핌천사들은 마음을 자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인간 마음 안에 순환계를-만드는 결정들을 증진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절자가 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인간 존재들의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환경을 통하여 일한다. 세라핌천사들은 우주 아버지의 매력인 신성한 조절자는 아니지만, 무한한 영의 사명활동에 있는 개

co-ordinated on the lower levels of human spiritual experience by the ministry of the guardian seraphim. The angelic servers are gifted in combining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mercy of the Son in their ministry to mortal creatures.

113:3.4 (1244.5) And herein is revealed the reason why the seraphic guardian eventually becomes the personal custodian of the mind patterns, memory formulas, and soul realities of the mortal survivor during that interval between physical death and morontia resurrection. None but the ministering children of the Infinite Spirit could thus function in behalf of the human creature during this phase of transition from one level of the universe to another and higher level. Even when you engage in your terminal transition slumber, when you pass from time to eternity, a high supernaphim likewise shares the transit with you as the custodian of creature identity and the surety of personal integrity.

113:3.5 (1244.6) On the spiritual level, seraphim make personal many otherwise impersonal and prepersonal ministries of the universe; they are co-ordinators. On the intellectual level they are the correlators of mind and morontia; they are interpreters. And on the physical level they manipulate terrestrial environment through their liaison with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and through the co-operative ministry of the midway creatures.

113:3.6 (1244.7) This is a recital of the manifold and intricate function of an attending seraphim; but how does such a subordinate angelic personality, created but a little above the universe level of humanity, do such difficult and complex things? We do not really know, but we conjecture that this phenomenal ministry is in some undisclosed manner facilitated by the unrecognized and unrevealed working of the Supreme Being, the actualizing Deity of the evolving universes of time and space. Throughout the entire realm of progressive survival in and through the Supreme Being, seraphim are an essential part of continuing mortal progression.

4. SERAPHIC DOMAINS OF ACTION

113:4.1 (1245.1) The guardian seraphim are not mind, though they do spring from the same source that also gives origin to mortal mind, the Creative Spirit. Seraphim are mind stimulators; they continually seek to promote circle-making decisions in human mind. They do this, not as does the Adjuster, operating from within and through the soul, but rather from the outside inward, working through the social, ethical, and moral environment of human beings. Seraphim are not the divine Adjuster lure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y do function as the personal

인적 매개자로 기능한다.

조절자의 인도에 따른다면 그에 따라서, 필사 사람은 또한 세라핌천사의 안내도 쉽게 따르게 된다. 조절자는 사람의 영원한 본성의 본질이다; 세라핌천사는 사람의—이 일생에서 필사자 마음 안에서, 다음 일생에서 모론시아 혼 안에서—진화하는 본성의 선생이다. 맨션세계들에서 너희는 세라핌천사인 강사들을 인식하고 알아보게 되겠지만, 첫 번째 일생안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세라핌천사는 인간 개인성의 발걸음을 새롭고도 진보적인 체험들의 길로 안내함으로써 사람들의 선생으로 기능한다. 세라핌천사의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한 일생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은 거의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러한 것을 따르면서, 너희는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의 험한 언덕들과 피할 수 없이 부딪칠 것이고, 만일 너희에게 용기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가로지르며 넘을 것이다.

경배에 대한 충동은 대부분 보다 높은 마음 보조 기능들의 영 충동들 속에서 기원되는데, 조절자의 안내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나 하느님을 인식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자주 체험되는,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은 세라핌천사가 영향을 준 결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있다. 보호하는 세라핌천사는, 생존될 예정인 그러한 사람이 내주하는 조절자의 현존에 대한 증진된 실현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신성한 현존의 영적인 임무와의 증진된 협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중착점을 향하여 상승하는 인간의 조화우주 통찰력을 증강시킬 목적으로 필사자의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종하고 있다.

내주하는 조절자들과 주변에 있는 세라핌천사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그들은 항상 완전한 조화와 정교한 화합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수호자들은 조절자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그들의 사명활동은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그러한 승고한 협동은 우연한 현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거의 아니다.

수호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하는 개인성과, 내주하는 조절자의 하느님 현존과, 순환회로로 감싸는 성령의 활동, 그리고 진리의 영의 아들-의식은 모두 필사자 개인성 안에서 그리고 개인성에 대한 영적 사명활동의 의미 있는 합일 속으로 신성하게 상관관계되어 있다. 다른 근원들과 다른 차원들로부터 쏟아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천상(天上)의 이 영향들은 모두 최극존재의 감추어지고 진화하는 현존 속에서 집대성되어 있다.

제 5 장. 필사자에 대한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

천사들은 인간 마음의 고결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들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는다

agency of the ministry of the Infinite Spirit.

113:4.2 (1245.2) Mortal man, subject to Adjuster leading, is also amenable to seraphic guidance. The Adjuster is the essence of man's eternal nature; the seraphim is the teacher of man's evolving nature — in this life the mortal mind, in the next the morontia soul. On the mansion worlds you will be conscious and aware of seraphic instructors, but in the first life men are usually unaware of them.

113:4.3 (1245.3) Seraphim function as teachers of men by guiding the footsteps of the human personality into paths of new and progressive experiences. To accept the guidance of a seraphim rarely means attaining a life of ease. In following this leading you are sure to encounter, and if you have the courage, to traverse, the rugged hills of moral choosing and spiritual progress.

113:4.4 (1245.4) The impulse of worship largely originates in the spirit promptings of the higher mind adjutants, reinforced by the leadings of the Adjuster. But the urge to pray so often experienced by God-conscious mortals very often arises as the result of seraphic influence. The guarding seraphim is constantly manipulating the mortal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augmenting the cosmic insight of the human ascender to the end that such a survival candidate may acquire enhanced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and thus be enabled to yield increased co-operation with the spiritual mission of the divine presence.

113:4.5 (1245.5) While there is apparently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indwelling Adjusters and the encompassing seraphim, they always seem to work in perfect harmony and exquisite accord. The guardians are most active at those times when the Adjusters are least active, but their ministry is in some manner strangely correlated. Such superb co-operation could hardly be either accidental or incidental.

113:4.6 (1245.6) The ministering personality of the guardian seraphim, the God presence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encircuted act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 Son-consciousness of the Spirit of Truth are all divinely correlated into a meaningful unity of spiritual ministry in and to a mortal personality. Though hailing from different sources and different levels, these celestial influences are all integrated in the enveloping and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5. SERAPHIC MINISTRY TO MORTALS

113:5.1 (1245.7) Angels do not invade the sanctity of the human mind; they do not manipulate the will of

다; 뿐만 아니라 내주 하는 조절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의 수호자는 너희 개인성의 존엄성과 일치되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영향을 끼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천사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행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물론 다른 어떤 계층의 우주 개인성도, 인간의 선택하는 그러한 특권들을 축소하거나 단축할 힘이나 권한이 없다.

천사들은 너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너희의 고집스러운 편협성과 완강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라핌 천사들은 물리적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리적 몸체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성을 소유하고 있고, 영적 본성의 느낌과 정서들을 체험하며,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성과 비교될 수 있다.

세라핌천사들은 너희의 직접적인 호소들과 전혀 무관하게 너희를 위해 행동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에게 스쳐 지나가는 변덕스런 생각들 또는 변화무쌍한 기분과는 관계없이 기능한다. 이것이, 너희가 그들의 임무를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너희의 호소나 또는 너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 천사들의 지성이 필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그들은 대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다; 단순히 수호자들에 불과하다. 세라핌천사들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경로를 계획해야만 하지만, 이 천사들은 그 때 너희가 선택한 그 경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그들은 (대개) 인간 삶의 일상적인 관련자들 속에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상급자들로부터 어떤 유별난 업적을 수행하도록 지도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 수호자들이 이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발견하리라고 너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과 그 다음에는 대개 그들 상급자들의 직접적인 지도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적 각본의 장면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 시대 동안 너희를 따라다니게 될 존재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미래 업무와 개인성 관계적-연합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세라핌천사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인간 존재들에게 물질적으로 사명활동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능력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중도 창조체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인간 존재들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류와 실제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발생사건들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비록 인간 진화의 사슬 줄 안에서 생사에 관한 고리들에 대한 위험을 포함해서, 여러 계기들이 생겨나고 있고,

mortals; neither do they directly contact with the indwelling Adjusters. The guardian of destiny influences you in every possible manner consistent with the dignity of your personality; under no circumstances do these angels interfere with the free action of the human will. Neither angels nor any other order of universe personality have power or authority to curtail or abridge the prerogatives of human choosing.

113:5.2 (1246.1) Angels are so near you and care so feelingly for you that they figuratively “weep because of your willful intolerance and stubbornness.” Seraphim do not shed physical tears; they do not have physical bodies; neither do they possess wings. But they do have spiritual emotions, and they do experience feelings and sentiments of a spiritual nature which are in certain ways comparable to human emotions.

113:5.3 (1246.2) The seraphim act in your behalf quite independent of your direct appeals; they are executing the mandates of their superiors, and thus they function regardless of your passing whims or changing moods. This does not imply that you may not make their tasks either easier or more difficult, but rather that angels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your appeals or with your prayers.

113:5.4 (1246.3) In the life of the flesh the intelligence of angels is not directly available to mortal men. They are not overlords or directors; they are simply guardians. The seraphim *guard* you; they do not seek directly to influence you; you must chart your own course, but these angels then act to make the best possible use of the course you have chosen. They do not (ordinarily) arbitrarily intervene in the routine affairs of human life. But when they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ir superiors to perform some unusual exploit, you may rest assured that these guardians will find some means of carrying out these mandates. They do not, therefore, intrude into the picture of human drama except in emergencies and then usually on the direct orders of their superiors. They are the beings who are going to follow you for many an age, and they are thus receiving an introduction to their future work and personality association.

113:5.5 (1246.4) Seraphim are able to function as material ministers to human being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ut their action in this capacity is very rare. They are able,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dway creatures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to function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 behalf of human beings, even to make actual contact with mankind, but such occurrences are very unusual. In most instances the circumstances of the material realm proceed unaltered by seraphic

그 속에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 그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적 영역의 환경들은 세라핌천사의 활동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제 6 장. 죽음 이후의 수호천사

자연적인 일생 동안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여러 일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하였으므로, 나는 그들의 인간 연관-동료의 필사자 분해가 일어날 시기에 운명의 수호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애써 보겠다. 너희가 죽게 되면, 떠나가는 조절자와 개인성의 실재성에 의해 대표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존의 정체성을 제외하고는, 너희의 기록들, 정체성 명세사항, 그리고 인간 혼—필사자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해 공동으로 진화된 것—의 모론시아 실존개체들은, 너희의 미래 실존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가치들,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 진정한 너인 모든 것과 함께, 운명 수호자에 의해 충실하게 보존된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도하는 빛, 세라핌천사가 조절자의 현존과 연관하는 영 발광체가 사라지자마자, 항상 따라다니던 천사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무리단의 지휘하는 천사들에게 연속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 한다; 시간과 공간의 최종 모험여행을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되어 진 이후에, 그러한 천사는 이 후보자의 세라핌천사 무리를 지휘하는 저녁별(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지휘부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로부터 우주 상승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조직 연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순간, 그러한 운명 수호자는 첫 번째 맨션세계로 나아가며 그리고 육체 속에서 그녀의 보호를 받던 옛 피보호자가 의식화 되어지는 것을 그곳에서 기다린다.

인간 혼이 개인적인 천사의 배정을 받아들인 후에 생존에서 실패하는 경우에는, 따라다니던 그 세라핌천사는 지역우주의 본부들로 출두해야만 하는데, 전에 보고 하였던 대로 자신의 보완물에 대한 완벽한 기록들에 대해 그곳에서 증언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자신의 주인이 생존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사면되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법정에서 출두한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그 세계들로 되돌아가서, 상승의 잠재성을 가진 다른 필사자에게 또는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의 다른 어떤 분야에 다시 배정된다.

그러나 천사들은 개인적 봉사와 집단적인 수호자신분의 봉사와 외에 많은 방법으로 진화적 창조체들을 돌본다. 그 주인들이 즉시 맨션세계들로 가지 않는 개인적 천사들은 섭리시대적 호출을 기다리면서 한가하게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에 두루 수많은 돕는 임무들에 다시 배정된다.

action, although occasions have arisen, involving jeopardy to vital links in the chain of human evolution, in which seraphic guardians have acted, and properly, on their own initiative.

6. GUARDIAN ANGELS AFTER DEATH

113:6.1 (1246.5) Having told you something of the ministry of seraphim during natural life, I will endeavor to inform you about the conduct of the guardians of destiny at the time of the mortal dissolution of their human associates. Upon your death, your records, identity specifications, and the morontia entity of the human soul — conjointly evolved by the ministry of mortal mind and the divine Adjuster — are faithfully conserved by the destiny guardian together with all other values related to your future existence, everything that constitutes you, the real you, except the identity of continuing existence represented by the departing Adjuster and the actuality of personality.

113:6.2 (1246.6) The instant the pilot light in the human mind disappears, the spirit luminosity which seraphim associate with the presence of the Adjuster, the attending angel reports in person to the commanding angels, successively, of the group, company, battalion, unit, legion, and host; and after being duly registered for the final adventure of time and space, such an angel receives certification by the planetary chief of seraphim for reporting to the Evening Star (or other lieutenant of Gabriel) in command of the seraphic army of this candidate for universe ascension. And upon being granted permission from the commander of this highest organizational unit, such a guardian of destiny proceeds to the first mansion world and there awaits the consciousness of her former ward in the flesh.

113:6.3 (1247.1) In case the human soul fails of survival after having received the assignment of a personal angel, the attending seraphim must proce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local universe, there to witness to the complete records of her complement as previously reported. Next she goes before the tribunals of the archangels, to be absolved from blame in the matter of the survival failure of her subject; and then she goes back to the worlds, again to be assigned to another mortal of ascending potentiality or to some other division of seraphic ministry.

113:6.4 (1247.2) But angels minister to evolutionary creatures in many ways aside from the services of personal and group guardianship. Personal guardians whose subjects do not go immediately to the mansion worlds do not tarry there in idleness awaiting the dispensational roll calls of judgment; they are reassigned to numerous ministering missions throughout the universe.

수호 세라핌천사는, 자리를 비운 조절자가 그 어떤 불멸하는 우주 존재의 정체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사 사람의 정지하고 있는 혼의 생존가치의 보호관리 신탁자이다. 이 둘이 맨션계에 있는 부활의 방에서 새로이 조합되는 모론시아 형태와 연대되어 공동으로 일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의 구성요소들의 재조립이 발생한다.

조절자는 너희를 정체성 확인할 것이다; 수호 세라핌천사가 너희를 재(再)개인성구현 시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땅에 있던 시절의 그 충실한 감시자에게 너희를 다시-내보일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성 시대가 끝날 때, 필사자 성취에서의 보다 낮은 순환계들 안에 있는 저들이 모아질 때, 너희가 가진 기록에서 “그가 그의 천사들을 큰 소리와 함께 보내어 세상 이 끝으로부터 다른 끝까지 선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라고 말 한대로, 맨션 구체들에 있는 부활의 방에서 저들을 재조립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집단 수호자들이다.

공의의 기법이 모든 비(非)생존 개인성을 대리하여 섭리시대의 점호에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호 천사들이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비(非)생존자들의 조절자는 되돌아오지 않으며, 점호가 있을 때, 세라핌천사들은 응답하지만, 조절자들은 아무 대답이 없다. 이것이 “부당한 자들의 부활”이며, 실제로는 창조제 실존의 중지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공의의 점호는 언제나 자비의 점호, 잠자는 생존자들의 부활 바로 뒤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존가치에 대한 최극의 그리고 전지(全知)의 심판관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관여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한 판결의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집단 수호자들은 행성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는 결국에는 수많은 잠자는 생존자들의 정지되어 있는 혼들의 보호관리자가 된다. 그들은 맨션세계들에서 부활 응답이 발생할 때까지 그렇게 한 주어진 체계 안에 있는, 여러 다른 세계에서 봉사할 수 있다.

루시퍼 반란 시에 길을 벗어났던, 사타니아 체계에 있는 모든 개인적 그리고 집단수호자들은, 다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셈에 억류되어 있다. 우주 검열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충한 이 수호자들로부터 그들의 혼(魂) 신탁들의 모든 양상을 재량으로서 가져갔으며 이들 모론시아 실체들을 자원하는 2품천사의 보호관리에 안전하게 맡겨두었다.

113:6.5 (1247.3) The guardian seraphim is the custodial trustee of the survival values of mortal man's slumbering soul as the absent Adjuster is the identity of such an immortal universe being. When these two collaborate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in conjunction with the newly fabricated morontia form, there occurs the reassembly of the constituent factors of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ascender.

113:6.6 (1247.4) The Adjuster will identify you; the guardian seraphim will repersonalize you and then re-present you to the faithful Monitor of your earth days.

113:6.7 (1247.5) And even so, when a planetary age ends, when those in the lower circles of mortal achievement are forgathered, it is their group guardians who reassemble them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mansion spheres, even as your record tells: “And he shall send his angels with a great voice and sha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one end of the realm to another.”

113:6.8 (1247.6) The technique of justice demands that personal or group guardians shall respond to the dispensational roll call in behalf of all nonsurviving personalities. The Adjusters of such nonsurvivors do not return, and when the rolls are called, the seraphim respond, but the Adjusters make no answer. This constitutes the “resurrection of the unjust,” in reality the formal recognition of the cessation of creature existence. This roll call of justice always immediately follows the roll call of mercy,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survivors. But these are matters which are of concern to none but the supreme and all-knowing Judges of survival values. Such problems of adjudication do not really concern us.

113:6.9 (1247.7) Group guardians may serve on a planet age after age and eventually become custodians of the slumbering souls of thousands upon thousands of sleeping survivors. They can so serve on many different worlds in a given system since the resurrection response occurs on the mansion worlds.

113:6.10 (1247.8) All personal and group guardians in the system of Satania who went astray in the Lucifer rebellion, notwithstanding that many sincerely repented of their folly, are to be detained on Jerusalem until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rebellion. Already have the Universal Censors arbitrarily taken from these disobedient and unfaithful guardians all aspects of their soul trusts and lodged these morontia realities for safekeeping in the custody of volunteer seconaphim.

제 7 장. 세라핌천사와 상승하는 생애

7. SERAPHIM AND THE ASCENDANT

CAREER

맨션세계의 해안에서 처음으로 깨어나는 이것은 정말로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 안에서, 신(新)시대이다; 맨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던 동안 너희를 오랫동안-사랑하였고 항상-현존하였던 천사 동행자들을 실제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 마음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내주하였던 신성한 감시자의 정체성과 현존을 진정으로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체험은 영광스러운 자각을 구성한다; 그것이 실제 부활이다.

모론시아 구체들에서는, 항상 따라 다니는 세라핌천사들(두 명이 있음)은 너희의 공개된 동행자들이다. 이 천사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생애를 통하여 너희가 진보할 때 가능한 모든 면에서 모론시아 지위 그리고 영(靈) 지위의 획득을 위해 너희를 도우면서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맨션세계들에서 유지되는 진화적(進化的) 세라핌천사들을 위한 분교(分校)에서 연구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인간 종족은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천사 계층들보다 아주 약간 낮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론시아 삶의 첫 번째 배정은 너희가 육신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나서 뒤이어 개인성 의식(意識)을 달성하면, 그때 기다리고 있는 즉각적인 업무로서 세라핌천사에 대한 보좌관으로서 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맨션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필사자들은 영구적인 세라핌천사 연관-동료들 또는 보호 천사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론시아 구체들을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생각 조절자와의 너희의 영원한 연합의 선포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는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너희의 개인성 정체성들이 시간의 세계의 육신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숙한 모론시아 상태를 달성하게 되면, 그들은 예루셈에 두루 그리고 관련된 체계 세계들의 진보와 문화에 두루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에덴시아로 그리고 거기의 진보된 사회화달성의 70 구체들에 갈 것이며, 그리고 뒤이어 그들은 너희를 멜기세덱들에게로 안내하고 우주 본부 세계들의 장엄한 생애에 두루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멜기세덱들의 지혜와 문화를 다 배운 후에, 그들은 너희를 구원자별로 데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네바돈 모든 것의 주권자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라핌천사 안내자는 초우주의 소구역 그리고 대구역에 두루 그리고 유버사의 접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여전히 따라갈 것인데, 너희가 긴 하보나 비행을 위하여 2품천사에 둘러싸일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필사자 생애 동안 함께 하는 운명 보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보나에 두루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경로를 따라간다. 다른 천사들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필사자 연관-동료들에게 일시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그 후에는 이 필사자들이 중앙우주의

113:7.1 (1248.1) It is indeed an epoch in the career of an ascending mortal, this first awakening on the shores of the mansion world; there, for the first time, actually to see your long-loved and ever-present angelic companions of earth days; there also to become truly conscious of the identity and presence of the divine Monitor who so long indwelt your mind on earth. Such an experience constitutes a glorious awakening, a real resurrection.

113:7.2 (1248.2) On the morontia spheres the attending seraphim (there are two of them) are your open companions. These angels not only consort with you as you progress through the career of the transition worlds, in every way possible assisting you in the acquirement of morontia and spirit status, but they also avail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 to advance by study in the extension schools for evolutionary seraphim maintained on the mansion worlds.

113:7.3 (1248.3) The human race was created just a little lower than the more simple types of the angelic orders. Therefore will your first assignment of the morontia life be as assistants to the seraphim in the immediate work awaiting at the time you attain personality consciousness subsequent to your liberation from the bonds of the flesh.

113:7.4 (1248.4) Before leaving the mansion worlds, all mortals will have permanent seraphic associates or guardians. And as you ascend the morontia spheres, eventually it is the seraphic guardians who witness and certify the decrees of your eternal union with the Thought Adjusters. Together they have established your personality identities as children of the flesh from the worlds of time. Then, with your attainment of the mature morontia estate, they accompany you through Jerusalem and the associated worlds of system progress and culture. After that they go with you to Edentia and its seventy spheres of advanced socialization, and subsequently will they pilot you to the Melchizedeks and follow you through the superb career of the universe headquarters worlds. And when you have learned the wisdom and culture of the Melchizedeks, they will take you on to Salvington, where you will stand face to face with the Sovereign of all Nebadon. And still will these seraphic guides follow you through the minor and major sectors of the superuniverse and on to the receiving worlds of Uversa, remaining with you until you finally enseeconaphim for the long Havona flight.

113:7.5 (1248.5) Some of the destiny guardians of attachment during the mortal career follow the course of the ascending pilgrims through Havona. The others bid their long-time mortal associates a temporary farewell, and then, while these mortals

순환계들을 지나가는 동안 이들 운명의 수호자들은 천사별의 순환계들을 성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필사자 연관-동료들이 새로운 영원 체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변환 숙면기로부터 깨어날 때 파라다이스의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은 나중에 최종자 무리단에서 그리고 완성의 세라핌천사 무리단에서 다양한 봉사들을 하게 된다.

사람과 천사는 영원한 봉사에 있어서 재(再)연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라핌천사 배정이 그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세라핌천사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그 전에 자기들이 보호하였던 그들, 시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항상 교통을 나눈다. 인간이 기원된 영역에서의 친밀한 관계적-연합과 애정 어린 결속은 결코 완벽하게 잊히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는다. 영원한 시대들 속에서 사람들과 천사들은 시간의 생애 속에서 활동할 때 신성한 임무에 협동하게 될 것이다.

세라핌천사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 신(神)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화적 기원을 갖는 혼을 파라다이스의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게 상급을 받는 세라핌천사의 임무는 운명 보호 천사의 직책이다.

오직 운명 수호천사들만이 1차, 즉 필사자 최종의 무리단으로 소집된다, 그리고 그러한 쌍들은 하나로-있는 정체성의 최극 모험에 참여해 왔다; 그 두 존재들은 최종자 무리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천사별에서 영적인 쌍방-통일을 성취해 왔다. 이러한 체험에서 그 두 천사 본성들은 모든 우주적 기능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보완적이고, 궁극적 영의 둘이-하나 됨을 성취하는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비(非)-조절자 단편을 받음과 그것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수용력 안에서 반향한다. 그리하여 시간 속에서 너희의 사랑하는 세라핌천사 동반자들 중 일부는 영원 속에서도 너희의 최종자 동반자들, 최극자의 자녀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완전하게 된 아들들이 된다.

[유란시아에 주둔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traverse the circles of the central universe, these guardians of destiny achieve the circles of Seraphington. And they will be in waiting on the shores of Paradise when their mortal associates awakened from the last transit sleep of time into the new experiences of eternity. Such ascending seraphim subsequently enter upon divergent services in the finaliter corps and in the Seraphic Corps of Completion.

113:7.6 (1248.6) Man and angel may or may not be reunited in eternal service, but wherever seraphic assignment may take them, the seraphim are always in communication with their former wards of the evolutionary worlds,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The intimate associations and the affectionate attachments of the realms of human origin are never forgotten nor ever completely severed. In the eternal ages men and angels will co-operate in the divine service as they did in the career of time.

113:7.7 (1249.1) For seraphim, the surest way of achieving the Paradise Deities is by successfully guiding a soul of evolutionary origin to the portals of Paradise. Therefore is the assignment of guardian of destiny the most highly prized seraphic duty.

113:7.8 (1249.2) Only destiny guardians are mustered into the primary or mortal Corps of the Finality, and such pairs have engaged in the supreme adventure of identity at-oneness; the two beings have achieved spiritual bi-unification on Seraphington prior to their reception into the finaliter corps. In this experience the two angelic natures, so complemental in all universe functions, achieve ultimate spirit two-in-oneness, repercussing in a new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and fusion with, a non-Adjuster fragment of the Paradise Father. And so do some of your loving seraphic associates in time also become your finaliter associates in eternity, children of the Supreme and perfected sons of the Paradise Father.

113:7.9 (1249.3)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 114 편 세라핌천사의 행성 정부

⇨ 113

유랜시아 책

115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4 편 세라핌천사의 행성 정부

섹션

소개

- 제 1 장. 유랜시아의 주권
- 제 2 장. 행성 감독자 위원회
- 제 3 장. 거주 총독
- 제 4 장. 지고자(至高者) 관찰자
- 제 5 장. 행성 정부
- 제 6 장. 행성 감독의 주(主) 세라핌천사
- 제 7 장. 운명의 예비무리단

PAPER 114

SERAPHIC PLANETARY
GOVERNMENT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Sovereignty of Urantia
- 2. The Board of Planetary Supervisors
- 3.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 4. The Most High Observer
- 5. The Planetary Government
- 6.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 7.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소개

지고자들은 많은 천상의 무리들과 매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왕국들을 통치하지만 주로 세라핌천사들의 사명활동을 통해서 통치한다.

오늘 정오에 출석한 유랜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들과 수호천사들 그리고 여타 천사들의 숫자는 501,234,619 쌍의 세라핌천사들이다. 나의 명령을 따르도록 배정된 세라핌천사는 200개의 무리단이며 이는 597,196,800 쌍—개별 숫자로 1,194,393,600 명이다. 아무튼, 등록된 개별 존재들의 숫자는 1,002,469,238명이다; 그러므로 191,924,362명의 천사들이 운송과 메신저 그리고 죽은 자의 임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유랜시아에는 세라핌천사들과 거의 동일한 숫자의 케루빔들이 있으며, 그들도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을 보조하는 케루빔들은 행성, 특별히 반란 때문에 고립되어 온 세계들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 사항들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천사들은 중도자들에게 이해 능숙하게 보조를 받으면서, 거주 총독과 그의 모든 연관-동료

INTRODUCTION

114:0.1 (1250.1)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through many celestial forces and agencies but chiefly through the ministry of seraphim.

114:0.2 (1250.2) At noon today the roll call of planetary angels, guardians, and others on Urantia was 501,234,619 pairs of seraphim. There were assigned to my command two hundred seraphic hosts — 597,196,800 pairs of seraphim, or 1,194,393,600 individual angels. The registry, however, shows 1,002,469,238 individuals; it follows therefore that 191,924,362 angels were absent from this world on transport, messenger, and death duty. (On Urantia there are about the same number of cherubim as seraphim, and they are similarly organized.)

114:0.3 (1250.3) Seraphim and their associated cherubim have much to do with the details of the superhuman government of a planet, especially of worlds which have been isolated by rebellion. The angels, ably assisted by the midwayers, function on Urantia as the actual supermaterial ministers

들 그리고 종속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초물질적 생명활동자들로서 유란시아에서 기능하고 있다. 하나의 등급으로서의 세라핌천사들은 개인적인 보호 역할과 집단적인 보호 역할 이외의 다른 많은 임무들에 배정되어 있다.

체계와 별자리 그리고 우주 통치자들로부터의 특유하고도 효력적인 감독이 유란시아에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그리고 심지어는 네바돈 전체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그것과 같지 않다. 너희의 감독 계획에 있어서의 이러한 독특성은 특이한 여러 환경들 때문에 기인된다:

1. 유란시아의 생명 변형 지위.
2. 루시퍼 반란의 위급성.
3. 아담의-불이행으로 인한 혼란.
4. 유란시아가 우주 주권자의 중여 세계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불규칙성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점.
5. 24명의 행성 지도자들의 특별한 기능.
6. 천사장의 순환회로의 행성 위에서의 위치.
7. 한 때 육신화 하였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아주 최근에 대한 행성영주로서 지명된 것.

제 1 장. 유란시아의 주권

유란시아에 대한 기원적 주권은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에 의해 행사되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에 의해 멜기세덱들과 생명운반자들의 연관 위원회에 위임되었으며, 이 집단은 정식으로 임명된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칼리가스티아 영주가 실패한 후,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육신 속의 중여를 완성할 때,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그가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로 선포될 때까지 지역우주 그리고 그것의 관리-행정적인 부서들과 확실하고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었다. 확실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그러한 선포가 너희 세계의 지위를 언제까지나 정착시켰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주권자 창조자 아들은 유란시아 정부를 비롯하여 그 체계에 있는 다른 모든 격리된 행성들에서 그를 대표하는 권한과 함께 24명의 이전(以前) 유란시아인 들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 수립을 제외하고는 그 행성의 개인적 통치에 대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협의회에 속한 한 명은 현재 거주총독으로서 유란시아에 항상 거주하고 있다.

who execute the mandates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nd all his associates and subordinates. Seraphim as a class are occupied with many assignments other than those of personal and group guardianship.

114:0.4 (1250.4) Urantia is not without proper and effective supervision from the system, constellation, and universe rulers. But the planetary government is unlike that of any other world in the Satania system, even in all Nebadon. This uniqueness in your plan of supervision is due to a number of unusual circumstances:

- 114:0.5 (1250.5) 1. The life modification status of Urantia.
- 114:0.6 (1250.6) 2. The exigencies of the Lucifer rebellion.
- 114:0.7 (1250.7) 3. The disruptions of the Adamic default.
- 114:0.8 (1250.8) 4. The irregularities growing out of the fact that Urantia was one of the bestowal worlds of the Universe Sovereign. Michael of Nebadon is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 114:0.9 (1250.9) 5. The special function of the twenty-four planetary directors.
- 114:0.10 (1250.10) 6. The location on the planet of an archangels' circuit.
- 114:0.11 (1250.11) 7. The more recent designation of the onetime incarnated Machiventa Melchizedek as vicegerent Planetary Prince.

1. THE SOVEREIGNTY OF URANTIA

114:1.1 (1250.12) The original sovereignty of Urantia was held in trust by the sovereign of the Satania system. It was first delegated by him to a joint commission of Melchizedeks and Life Carriers, and this group functioned on Urantia until the arrival of a regularly constituted Planetary Prince. Subsequent to the downfall of Prince Caligastia,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Urantia had no sure and settled relationship with the local universe and its administrative divisions until the completion of Michael's bestowal in the flesh, when he was proclaimed, by the Union of Days, Planetary Prince of Urantia. Such a proclamation in surety and in principle forever settled the status of your world, but in practice the Sovereign Creator Son made no gesture of personal administration of the planet aside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Jerusem commission of twenty-four former Urantians with authority to represent him in the government of Urantia and all other quarantined planets in the system. One of this council is now always resident on Urantia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미가엘을 대신하여 행성영주로 활동하는 대리권이 최근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되어 왔지만, 지역우주의 이 아들은 거주하는 총독들의 이어지는 관리-행정의 현재 행성 체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왔다.

만약에 대리 행성영주가 그의 명의상의 책임들을 지기 위하여 도착하지 않았다면 현재 섭리시대 동안 유란시아의 정부 속에 어떤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까운 장래의 어떤 시기에 24명의 조언자들 중에서 한 명을 유란시아에 보내어 총독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이 유란시아의 주권에 대한 대리자 위임 주권을 가진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도착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연관-동료들은 확신하고 있다. 행성영주로 활동하면서 그는 분명히 루시퍼 반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빛과 생명 속에 행성이 정착하는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그 행성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현재 섭리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관련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지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미가엘이 아직 육신 속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언젠가 유란시아에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대리 영주가 그렇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을 포함하여, 멜기세덱이 어느 날 또는 어느 시각에든지 나타나리라고 고대하고 있다.

제 2 장. 행성 감독자 위원회

너희가 사는 세상에 미가엘이 증여된 때 이후로, 유란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한 때 유란시아인 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에 있는 특별 집단에게 위탁되어 왔다. 이 위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분별된-자격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임명된 그들 모두가 사타니아 체계에서 최극자의 확대되는 주권에 공헌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모두 유란시아에서 활동하였을 때 실제적인 영도자들이었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영도자 관계의 이 본질특성들은 맨션세계의 체험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고 예루셈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에 의해 증강되었다. 회원들은 라나휘지의 내각에 의해 24명에게 지명되었고,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에 의해 재청되었으며, 예루셈의 배정된 파수자에 의해 승인되었고,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구원자별의 가르침에 의해 임명되었다. 임시적으로 지정된 그들은 특별한 감독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영원한 회원들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114:1.2 (1251.1) Vicegerent authority to act for Michael as Planetary Prince has been recently vested in Machiventa Melchizedek, but this Son of the local universe has made not the slightest move toward modifying the present planetary regime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ons of the resident governors general.

114:1.3 (1251.2) There is little likelihood that any marked change will be made in the government of Urantia during the present dispensation unless the vicegerent Planetary Prince should arrive to assume his titular responsibilities. It appears to certain of our associates that at some time in the near future the plan of sending one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to Urantia to act as governor general will be superseded by the formal arrival of Machiventa Melchizedek with the vicegerent mandate of the sovereignty of Urantia. As acting Planetary Prince he would undoubtedly continue in charge of the planet until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and probably on into the distant future of planetary settlement in light and life.

114:1.4 (1251.3) Some believe that Machiventa will not come to take personal direction of Urantian affairs until the end of the current dispensation. Others hold that the vicegerent Prince may not come, as such, until Michael sometime returns to Urantia as he promised when still in the flesh. Still others, including this narrator, look for Melchizedek's appearance any day or hour.

2. THE BOARD OF PLANETARY SUPERVISORS

114:2.1 (1251.4) Since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on your world the general management of Urantia has been intrusted to a special group on Jerusalem of twenty-four onetime Urantians.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on this commission is unknown to us, but we have observed that those who have been thus commissioned have all been contributors to the enlarging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the system of Satania. By nature they were all real leaders when they functioned on Urantia, and (excepting Machiventa Melchizedek) these qualities of leadership have been further augmented by mansion world experience and supplemented by the training of Jerusalem citizenship. Members are nominated to the twenty-four by the cabinet of Lanaforge, seconded by the Most Highs of Edentia, approved by the Assigned Sentinel of Jerusalem, and appointed by Gabriel of Salvington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Michael. The temporary appointees function just as fully as do the permanent members of this commission of special supervisors.

행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미가엘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이 세상에서 체험하였다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의 그 활동들에 대한 감독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은 어떤 찬란한 저녁별, 예수의 필사자 증여에 두루 그와 함께 하였던 그 동일한 존재의 연락 활동들에 의해, 미가엘과 계속 가까이 그리고 즉각적인 연락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요한, 너희에게는 “세례자”라고 알려진 그가 예루셈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이 협의회의 의장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이 협의회의 의장은 사타니아의 배정된 파수자인데, 그는 구원자별에 있는 연합-동료 검열자와 오르본톤의 최극집행자의 직접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대표자다.

전에 유란시아인들이었던 바로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또한 그 체계 안에 있는 반란으로-고립된 36개의 다른 세계들에 대해 자문하는 감독자로도 활동한다; 그들은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들의 전반적-통제 아래에 아직도 다소 남아 있는 이 행성들의 관련사들과 긴밀하고도 동정심 어린 접촉을 하면서,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를 따르는 매우 가치 있는 봉사를 수행한다. 24명의 이 조언자들은 격리된 행성들 각각에 개별적으로 자주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유란시아에 자주 간다.

고립된 다른 세계들 각각은 한 때 그곳에 거주하였던 저들로 구성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들에 의해 충고를 받지만, 다른 이 위원회들은 24명의 유란시아 집단에 종속되어 있다. 최근 위원회의 회원들은 그래서 사타니아 안에 있는 각각의 격리된 세계에서 인간 진보의 모든 위상에 활발하게 관심을 쏟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은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의 복지와 진보에 특별하게 그리고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유란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들의 관련사들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곳에서도 그들의 권한은 필사자의 생존과 관계되는 특정권역을 제외하고는 완벽하지가 않다.

24명의 이 유란시아 조언자들이 우주 활동들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분리된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한 세대의 끝,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의한 충분한 권한의 인수, 루시퍼 반란에 대한 최종 판결,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되었던 이 세상에 그가 재림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성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그들의 현재 능력 속에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종족은 사타니아 체계가 별자리 순환회로들에게로 환원되는 그 순간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파라다이스 상승을 위하여 거의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 역시 현재적이다.

114:2.2 (1251.5) This board of planetary directors is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supervision of those activities on this world which result from the fact that Michael here experienced his terminal bestowal. They are kept in close and immediate touch with Michael by the liaison activities of a certain Brilliant Evening Star, the identical being who attended upon Jesus throughout the mortal bestowal.

114:2.3 (1252.1) At the present time one John, known to you as “the Baptist,” is chairman of this council when it is in session on Jerusalem. But the ex officio head of this council is the Assigned Sentinel of Satania, the direct and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Associate Inspector on Salvington and of the Supreme Executive of Orvonton.

114:2.4 (1252.2) The members of this same commission of former Urantians also act as advisory supervisors of the thirty-six other rebellion-isolated worlds of the system; they perform a very valuable service in keeping Lanaforge, the System Sovereign, in close and sympathetic touch with the affairs of these planets, which still remain more or less under the overcontrol of the Constellation Fathers of Norlatiadek. These twenty-four counselors make frequent trips as individuals to each of the quarantined planets, especially to Urantia.

114:2.5 (1252.3) Each of the other isolated worlds is advised by similar and varying sized commissions of its onetime inhabitants, but these other commissions are subordinate to the Urantian group of twenty-four. While the members of the latter commission are thus actively interested in every phase of human progress on each quarantined world in Satania, they are especially and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welfare and advancement of the mortal races of Urantia, for they immediately and directly supervise the affairs of none of the planets except Urantia, and even here their authority is not complete excepting in certain domains concerned with mortal survival.

114:2.6 (1252.4) No one knows how long these twenty-four Urantia counselors will continue in their present status, detached from the regular program of universe activities. They will no doubt continue to serve in their present capacities until some change in planetary status ensues, such as the end of a dispensation, the assumption of full authority by Machiventa Melchizedek, the final adjudic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or the reappearance of Michael on the world of his final bestowal. The present resident governor general of Urantia seems inclined to the opinion that all but Machiventa may be released for Paradise ascension the moment the system of Satania is restored to the constellation circuits. But other opinions are also current.

제 3 장. 거주 총독

유란시아 시간으로 매 100년마다, 24명의 행성 감독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는 그들 중에서의 한 명을 너희 세계에 머물도록 지정하여 그들의 집행 대리자, 거주총독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 글들이 준비되던 시기 동안에 이 집행 관리자가 바뀌었는데, 19번째를 뒤이어서 20번째가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다. 현재의 행성 감독자의 이름은 너희에게 알려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만 필사 사람이 자신의 비범한 동료들과 초인간적 우월성을 갖는 사람들을 숭배하려는 그리고 심지어는 신(神)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다.

거주총독은 24명의 예루셈 조연자들의 대표자 역할 이외에는 세상 관련자들의 운영에 실제적인 개인적 권한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는 초인간적 관리-행정의 조화-협동자로 활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약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의 훌륭한 우두머리이며 널리 알려진 지도자이다. 천사 무리들의 모든 계층들은 그를 그들의 조화-협동 지도자로 간주하는 반면, 연합된 중도자들은 첫 번째인 1-2-3이 24 조연자들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하여 떠난 이후로는 이어지는 통치자들 대장을 실제로 자신들의 행성 아버지들이라고 간주한다.

그 총독이 비록 그 행성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관계된 모든 개인성들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수많은 판정과 결정들을 매일같이 하달한다. 그는 전문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충고자에 훨씬 더 가깝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성영주인 것처럼 활동하지만, 그의 관리-행정은 물질 아들들의 것과 더욱 유사하다.

유란시아 정부는 되돌아오는 총독이 행성영주들로 구성된 체계 주권자 내각의 임시적인 회원의 자리에 앉는 배열에 따라서 예루셈 협의회 안에 나타내진다. 마키벤타가 대리 영주로 지정되었을 때, 사타니아의 행성영주들의 협의회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초물질적 정부는 그 지역우주의 보다 높은 기구들과 매우 가까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거주총독은 예루셈뿐만 아니라 구원자별을 대표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24명 조연자들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셈 시민이 되면, 행성 통치자는 체계 주권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별자리 당국은 에덴시아 관찰자인 보론다텍 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대변된다.

3.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3.1 (1252.5) Every on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the Jerusem corps of twenty-four planetary supervisors designate one of their number to sojourn on your world to act as their executive representative, as resident governor general. During the times of the preparation of these narratives this executive officer was changed, the nineteenth so to serve being succeeded by the twentieth. The name of the current planetary supervisor is withheld from you only because mortal man is so prone to venerate, even to deify, his extraordinary compatriots and superhuman superiors.

114:3.2 (1252.6)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has no actual personal authority in the management of world affairs excep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twenty-four Jerusem counselors. He acts as the co-ordinator of superhuman administration and is the respected head and universally recognized leader of the celestial beings functioning on Urantia. All orders of angelic hosts regard him as their co-ordinating director, while the United Midwayers, since the departure of 1-2-3 the first to become one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really look upon the successive governors general as their planetary fathers.

114:3.3 (1253.1) Although the governor general does not possess actual and personal authority on the planet, he hands down scores of rulings and decisions each day which are accepted as final by all personalities concerned. He is much more of a fatherly adviser than a technical ruler. In certain ways he functions as would a Planetary Prince, but his administration much more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Material Sons.

114:3.4 (1253.2) The Urantia government is represented in the councils of Jerusem in accordance with an arrangement whereby the returning governor general sits as a temporary member of the System Sovereign's cabinet of Planetary Princes. It was expected, when Machiventa was designated vicegerent Prince, that he would immediately assume his place in the council of the Planetary Princes of Satania, but thus far he has made no gesture in this direction.

114:3.5 (1253.3) The supermaterial government of Urantia does not maintain a very close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higher units of the local universe. In a way,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represents Salvington as well as Jerusem since he acts on behalf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who are directly representative of Michael and Gabriel. And being a Jerusem citizen, the planetary governor can function as a spokesman for the System Sovereign. The constellation authorities are represented directly by a Vorondadek Son, the Edentia observer.

제 4 장. 지고자(至高者) 관찰자

유란시아의 주권은 그 행성의 반란 직후에 놀라시아텍의 정부에 의해 행성 권한이 한 때 독단적으로 물수됨으로써 더욱 어렵게 되었다. 유란시아에는 여전히 에덴시아의 지고자를 위한 관찰자, 미가엘에 의한 직접 활동이 없을 시, 행성주권의 수탁자인, 보론다텍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지고자 관찰자(그리고 가끔의 대리자)는 유란시아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23번째이다.

루시퍼 반란 시에 그들에 대한 판결이 동결된 채로 아직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통제 하에 있는 특정한 부류의 행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권한은 놀라시아텍 관찰자인 보론다텍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데, 그는 행성 감독자들과 매우 긴밀한 자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족위원들이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자문 감독자로 활동하는, 거주하는 보론다텍 관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다.

위기의 때에 그 정부의 실제적이고 주권을 가진 우두머리는, 순전히 영적인 어떤 문제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현재 관찰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텍 아들일 것이다. (배타적으로 영적인 이 들 문제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 권한이 최근에 유란시아에 설립된 그 계층의 분야별 본부에 배속된 명령하는 천사장들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인다.)

지고자 관찰자는 행성의 중대한 위기 때에 그의 사려 깊은 분별력에 따라 그 행성 정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란시아의 역사상 이것이 33번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때에 지고자 관찰자는 지고자 대리통치자로 활동하는데, 천사장들의 분야별 조직만을 제외하고 그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망활동자와 행정-관리자에게 도전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보론다텍 대리 통치는 반란으로-고립된 행성들에게 색다른 것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에 생기는 관련사들에서 별자리 통치자들의 우월한 지혜를 개입시키면서, 언제든지 거주 세계들의 관련사들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행성 정부

유란시아의 실제 관리-행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분리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같은 우주 조직의 계통들을

4. THE MOST HIGH OBSERVER

114:4.1 (1253.4) The sovereignty of Urantia is further complicated by the onetime arbitrary seizure of planetary authority by the government of Norlatiadek shortly after the planetary rebellion. There is still resident on Urantia a Vorondadek Son, an observer for the Most Highs of Edentia and, in the absence of direct action by Michael, trustee of planetary sovereignty. The present Most High observer (and sometime regent) is the twenty-third thus to serve on Urantia.

114:4.2 (1253.5) There are certain groups of planetary problems which are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jurisdiction over them having been seized at the time of the Lucifer rebellion. Authority in these matters is exercised by a Vorondadek Son, the Norlatiadek observer, who maintains very close advisory relations with the planetary supervisors. The race commissioners are very active on Urantia, and their various group chiefs are informally attached to the resident Vorondadek observer, who acts as their advisory director.

114:4.3 (1253.6) In a crisis the actual and sovereign head of the government, excepting in certain purely spiritual matters, would be this Vorondadek Son of Edentia now on observation duty. (In these exclusively spiritual problems and in certain purely personal matters, the supreme authority seems to be vested in the commanding archangel attached to the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at order which was recently established on Urantia.)

114:4.4 (1253.7) A Most High observer is empowered, at his discretion, to seize the planetary government in times of grave planetary crises, and it is of record that this has happened thirty-three times in the history of Urantia. At such times the Most High observer functions as the Most High regent, exercising unquestioned authority over all ministers and administrators resident on the planet excepting only the divisional organization of the archangels.

114:4.5 (1253.8) Vorondadek regencies are not peculiar to rebellion-isolated planets, for the Most Highs may intervene at any time in the affairs of the inhabited worlds, interposing the superior wisdom of the constellation rulers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s of men.

5. THE PLANETARY GOVERNMENT

114:5.1 (1254.1)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Urantia is indeed difficult to describe. There exists no formal government along the lines of universe

따르는 공식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4 조연자들은 행성 정부의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거부권을 가진 지고자 관찰자와 함께, 잠정적이면서 자문 역할의 우두머리 집행자다. 그리고 행성에서 작용하는 어떤 강제적인 사법권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오직 화해위원회들이 있을 뿐이다.

세라핌천사들과 중도자들과 관계된 문제들 대부분은 상호 동의에 의해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 조연자들이 지시를 하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통치는 모두 화해 위원회들에게, 행성 기능을 구성하는 지방 권한자들에게, 또는 심지어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에게 하는 호소에 종속된다.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 그리고 딸의 물질적인 통치체계의 부재는 세라핌천사들의 특별한 사명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중도 창조체들의 비범한 봉사 임무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상된다. 행성영주의 부재는 천사장들과 지고자 관찰자 그리고 총독의 삼원적 현존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보상된다.

비교적 느슨하게 조직되고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이 행성 정부는 기대이상으로 효과적이네, 그것은 천사장들과 그들의 항상 준비된 순환회로의 시간 절약 보조 때문이며, 그것은 행성의 비상사태들과 관리-행정적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매우 자주 활용된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행성이 놀라시아텍 순환회로에서 아직도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불리한 조건은 이제 천사장들의 순환회로의 활용을 통하여 회피될 수 있다. 물론, 1,900년 전에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진 이후로는 행성의 고립이 개별 필사자들에게 거의 관계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 각각의 행정-관리적 하루는 자문 회의와 함께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총독, 천사장들의 행성 우두머리, 지고자 관찰자, 감독하는 초(超)천사, 거주하는 생명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우주의 높은 아들들 중에서 또는 그 행성에 머물게 될 기회가 있는 특정한 학생 방문자들 중에서 초대된 손님들이 참여한다.

총독의 직접적인 행정-관리적 내각은 12 세라핌천사들, 행성 진보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초인간적 지도자들로 활동하는 특별한 천사들로 구성된 12 집단들의 대리 우두머리들로 구성된다.

organization, such as separat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departments. The twenty-four counselors come the nearest to being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planetary government. The governor general is a provisional and advisory chief executive with the veto power resident in the Most High observer. And there are no absolutely authoritative judicial powers operative on the planet — only the conciliating commissions.

114:5.2 (1254.2) A majority of the problems involving seraphim and midwayers are, by mutual consent, decided by the governor general. But except when voicing the mandates of the twenty-four counselors, his rulings are all subject to appeal to conciliating commissions, to local authorities constituted for planetary function, or even to the System Sovereign of Satania.

114:5.3 (1254.3) The absence of the corporeal staff of a Planetary Prince and the material regime of an Adamic Son and Daughter is partially compensated by the special ministry of seraphim and by the unusual services of the midway creatures. The absence of the Planetary Prince is effectively compensated by the triune presence of the archangels, the Most High observer, and the governor general.

114:5.4 (1254.4) This rather loosely organized and somewhat personally administered planetary government is more than expectedly effective because of the timesaving assistance of the archangels and their ever-ready circuit, which is so frequently utilized in planetary emergencies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Technically, the planet is still spiritually isolated in the Norlatiadek circuits, but in an emergency this handicap can now be circumvented through utilization of the archangels' circuit. Planetary isolation is, of course, of little concern to individual mortals since the pouring out of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nineteen hundred years ago.

114:5.5 (1254.5) Each administrative day on Urantia begins with a consultative conference, which is attended by the governor general, the planetary chief of archangels, the Most High observer, the supervising supernaphim, the chief of resident Life Carriers, and invited guests from among the high Sons of the universe or from among certain of the student visitors who may chance to be sojourning on the planet.

114:5.6 (1254.6) The direct administrative cabinet of the governor general consists of twelve seraphim, the acting chiefs of the twelve groups of special angels functioning as the immediate superhuman directors of planetary progress and stability.

제 6 장. 행성 감독의 주(主) 세라핌천사

6.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진리의 영이 부여짐과 때를 맞추어,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열 두 무리단의 특별 세라핌천사들, 천사별 졸업자들을 대동하였는데, 이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행성 봉사에 배치되었다. 이들 고양된 천사들은 행성감독주(主) 세라핌천사로 알려져 있으며, 행성의 지도자 관찰자의 전반적-통제와는 별도로, 거주총독의 지속적인 지도 밑에 속해있다.

열 두 집단의 이 천사들은 거주총독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동시에, 열 두 명의 세라핌천사 협의회, 각 집단의 대리 대장들에 의해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또한 이 협의회는 거주총독의 자발적인 내각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로서, 나는 세라핌천사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통솔하며, 또한 나는 칼리가스티아 탈퇴가 있었을 때 불이행을 행했던 천사 무리들의 우두머리로 한 때 봉사하였던 자의 후임자로서 유란시아에 봉사하는 1차 계층의 자원자 초(超)천사다.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의 열 두 무리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신기원(新紀元)의 천사. 이들은 현재 시대의 천사들, 섭리시대적 집단이다. 이 천사의 사명활동자들은 그들이 발생하는 그 시대의 모자이크 무늬에 맞추어 계획된 대로 각 세대의 관련사들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하도록 위탁되어 있다.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신기원의 천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무리는 현재의 섭리시대 동안에 행성에 배치된 세 번째 집단이다.

2. 진보의 천사. 이 세라핌천사들은 계속되는 사회적 시대들의 진화 과정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창조체들의 선천적인 발전적 경향의 발달을 육성한다; 반드시 존재되어야만 할 것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현재 임무를 맡은 집단은 행성에 배치된 두 번째 집단이다.

3. 종교의 수호자. 이들은 “교회들의 천사들”로서, 현재 존재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들이 한 신(新)시대로부터 다음 신(新)시대로 안전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여 온 이상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들은 진보의 천사들이, 옛날의 그리고 지나가는 형태들에 대한 불멸의 가치들을 새것으로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그래서 생각과 행위의 안정된 형태들이 감소되는 것을 폐쇄시키는 이들이다. 이 천사들이 영적 형태를 위하여 싸우지만, 전문 종교인들의 무의미한 논쟁적 파벌과 극단적 교파주의의 근원이 아니다. 현재 유란시아

114:6.1 (1254.7) When the first governor general arrived on Urantia, concurrent with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of Truth, he was accompanied by twelve corps of special seraphim, Seraphington graduates, who were immediately assigned to certain special planetary services. These exalted angels are known as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nd are, aside from the overcontrol of the planetary Most High observer, under the immediate direction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6.2 (1255.1) These twelve groups of angels, while functioning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are immediately directed by the seraphic council of twelve, the acting chiefs of each group. This council also serves as the volunteer cabinet of the resident governor general.

114:6.3 (1255.2) As planetary chief of seraphim, I preside over this council of seraphic chiefs, and I am a volunteer supernaphim of the primary order serving on Urantia as the successor of the onetime chief of the angelic hosts of the planet who defaulted at the time of the Caligastia secession.

114:6.4 (1255.3) The twelve corps of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are functional on Urantia as follows:

114:6.5 (1255.4) 1. *The epochal angels.* These are the angels of the current age, the dispensational group. These celestial ministers are intrusted with the oversight and direction of the affairs of each generation as they are designed to fit into the mosaic of the age in which they occur. The present corps of epochal angels serving on Urantia is the third group assigned to the planet during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6 (1255.5) 2. *The progress angels.* These seraphim are intrusted with the task of initiating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the successive social ages. They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inherent progressive trend of evolutionary creatures; they labor incessantly to make things what they ought to be. The group now on duty is the second to be assigned to the planet.

114:6.7 (1255.6) 3. *The religious guardians.* These are the “angels of the churches,” the earnest contenders for that which is and has been. They endeavor to maintain the ideals of that which has survived for the sake of the safe transit of moral values from one epoch to another. They are the checkmates of the angels of progress, all the while seeking to translat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e imperishable values of the old and passing forms into the new and therefore less stabilized patterns of thought and conduct. These angels do contend for spiritual forms, but they are not the source of ultrasectarianism and

에서 활동하는 무리는 그렇게 봉사하는 다섯 번째이다.

4. 국가 일생의 천사. 이들은 “나팔을 부는 천사들”, 유란시아 국가 생존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지도하는 존재들이다. 현재 국제적 관계들에 대한 전반적-통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집단은 그 행성에서 봉사하는 네 번째 무리이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세라핌천사 분과(分課)의 사명활동을 통해서이다.

5. 종족의 천사. 그들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황과 종교적인 집단화에 상관없이, 시간의 진화적 종족들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들. 유란시아에는 현대의 민족들 속으로 혼합되고 병합되어 온 아홉 개의 인간 인간 종족들이 남아 있다. 이 세라핌천사들은 종족위원들의 사명활동에 매우 가깝게 관여되어 있으며,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그 집단은 오순절 직후에 그 행성에 배정된 최초의 무리이다.

6. 미래의 천사. 이들은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섭리시대의 보다 나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미래 시대와 계획을 예측한다; 그들은 계속되는 시대들의 고안건축가들이다. 현재 이 행성에 있는 집단은 현재의 섭리시대의 시초(始初)부터 그렇게 활동해 왔다.

7. 깨우침의 천사. 유란시아는 현재 항상 교육을 육성하도록 전념된 세라핌천사의 세 번째 무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개별존재들, 가정들, 집단들, 학교들, 공동체들, 국가들, 그리고 전체 인종들과 관계되는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훈련에 종사하고 있다.

8. 건강의 천사. 이들은 질병 예방과 건강 추진에 전념하는 저들 필사자 대리자들을 돕도록 배정된 세라핌천사 사명활동자들이다. 현재의 무리는 이 섭리시대 동안에 봉사하는 여섯 번째 집단이다.

9. 가정(家庭) 세라핌천사. 유란시아는 현재 가정의 보호와 발전,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에 전념된 다섯 번째 집단의 천사 사명활동자들의 봉사를 받고 있다.

10. 산업의 천사. 이 세라핌천사 집단은 산업 발달 육성과 유란시아 민족들 속에서의 경제적 상황 증진에 관여한다. 이 무리는 미가엘의 증여 이후로 일곱 번 바뀌었다.

11. 기분전환의 천사. 이들은 오락과 유머 그리고 휴식을 증진시키는 세라핌천사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레크리에이션에 의한 기분전환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인간의 여가 활용을 보다 유익하

meaningless controversial divisions of professed religionists. The corps now functioning on Urantia is the fifth thus to serve.

114:6.8 (1255.7) 4. *The angels of nation life.* These are the “angels of the trumpets,” directors of the political performances of Urantia national life. The group now functioning in the overcontr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the fourth corps to serve on the planet. It is particularly through the ministry of this seraphic division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114:6.9 (1255.8) 5. *The angels of the races.* Those who work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volutionary races of tim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entanglements and religious groupings. On Urantia there are remnants of nine human races which have commingled and combined into the people of modern times. These seraphim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the race commissioners, and the group now on Urantia is the original corps assigned to the planet soon after the day of Pentecost.

114:6.10 (1255.9) 6. *The angels of the future.* These are the projection angels, who forecast a future age and plan for the realization of the better things of a new and advancing dispensation; they are the architects of the successive eras. The group now on the planet has thus function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11 (1256.1) 7. *The angels of enlightenment.* Urantia is now receiving the help of the third corps of seraphim dedicated to the fostering of planetary education. These angels are occupied with mental and moral training as it concerns individuals, families, groups, schools, communities, nations, and whole races.

114:6.12 (1256.2) 8. *The angels of health.* These are the seraphic ministers assigned to the assistance of those mortal agencies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health and the prevention of disease. The present corps is the sixth group to serve during this dispensation.

114:6.13 (1256.3) 9. *The home seraphim.* Urantia now enjoys the services of the fifth group of angelic ministers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and advancement of the home, the basic institution of human civilization.

114:6.14 (1256.4) 10. *The angels of industry.* This seraphic group is concerned with foster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among the Urantia peoples. This corps has been seven times changed since the bestowal of Michael.

114:6.15 (1256.5) 11. *The angels of diversion.* These are the seraphim who foster the values of play, humor, and rest. They ever seek to uplift man's recreational diversions and thus to promote the

게 증진시키려고 항상 노력한다. 현재의 무리는 유란시아에서 사명활동하는 세 번째의 계층이다.

12. 초인간 사명활동의 천사. 이들은 천사들의 천사들이며, 일시적이나 또는 영구적이나,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모든 초인간 생명들의 사명활동에 배정된 그러한 세라핌천사들이다. 이 무리는 현재의 섭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봉사해 왔다.

주(主) 세라핌천사들의 이들 집단이 행성 정책 또는 진행에 대해 의견이 달랐을 때, 그들의 차이점들은 대개 총독에 의해 안정되지만, 그의 모든 판정들은 불일치 속에 포함된 문제점들의 본질과 중대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천사 집단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배정 범위에 대한 직접적 또는 독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활동 권역에 있어서의 관련사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은 행성의 환경을 조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속된 인간 활동 영역에 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결합시킨다.

행성감독 주(主) 세라핌천사는 그들의 임무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대리자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관념작용의 교환정리소, 마음을 초점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구체적 투사 후원자들로 활동한다. 새롭고도 더 높은 개념들은 인간 마음들 속에 주입할 수 없는 반면, 그들은 이미 인간 마음속에 나타난 어떤 높은 이상이 강렬하게 나타나도록 기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긍정적 활동의 의미들 이외에, 세라핌천사 우두머리는 운명예비무리단의 동원과 훈련 그리고 유지를 통하여 극히 중대한 위험에 맞서는 행성 진보를 보장한다. 이 예비자들의 주요 기능은 진화 과정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그들은 천상의 무리들이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 준비한 조치들이다; 재난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존재들이다.

제 7 장. 운명의 예비무리단

운명예비무리단은 세상 관련사에서의 초인간적 관리-행정의 특별한 봉사에 받아들여진 살아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무리는, 진화하는 세상들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사명활동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영역의 영 지도자들에 의해 선택되는 각 세대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그러한 책임들을 맡을만한 능력이 있고 신뢰가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러한 필사자 의지 창조체들의 연락 활용기능을 시작하는 것은, 상승 계획에서의 관련사들의 수행에서 일반적인 실천 관례이다. 따라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충분한 정신적 수

more profitable utilization of human leisure. The present corps is the third of that order to minister on Urantia.

114:6.16 (1256.6) 12. *The angels of superhuman ministry.* These are the angels of the angels, those seraphim who are assigned to the ministry of all other superhuman life on the planet, temporary or permanent. This corps has serv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urrent dispensation.

114:6.17 (1256.7) When these groups of master seraphim disagree in matters of planetary policy or procedure, their differences are usually composed by the governor general, but all his rulings are subject to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and gravity of the issues involved in the disagreement.

114:6.18 (1256.8) None of these angelic groups exercise direct or arbitrary control over the domains of their assignment. They cannot fully control the affairs of their respective realms of action, but they can and do so manipulate planetary conditions and so associate circumstances as favorably to influence the spheres of human activity to which they are attached.

114:6.19 (1256.9) The master seraphim of planetary supervision utilize many agencies for the prosecution of their missions. They function as ideational clearinghouses, mind focalizers, and project promoters. While unable to inject new and higher conceptions into human minds, they often act to intensify some higher ideal which has already appeared within a human intellect.

114:6.20 (1256.10) But aside from these many means of positive action, the master seraphim insure planetary progress against vital jeopardy through the mobilization, training, and maintenance of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e chief function of these reservists is to insure against breakdown of evolutionary progress; they are the provisions which the celestial forces have made against surprise; they are the guarantees against disaster.

7.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114:7.1 (1257.1)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consists of living men and women who have been admitted to the special service of the superhuman administration of world affairs. This corps is made up of the men and women of each generation who are chosen by the spirit directors of the realm to assist in the conduct of the ministry of mercy and wisdom to the children of time on the evolutionary worlds. It is the gener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ascension plans to begin this liaison utilization of mortal will creatures immediately they are competent and trustworthy to

용력과 적절한 도덕적 지위 그리고 필수적인 영성을 갖고 현세적인 활동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인간 연락자, 필사자 보좌관들로서 행성 개인성들로 구성된 적절한 천상의 집단에 즉시 배정된다.

인간 존재들이 행성 운명의 보호자들로 선택될 때, 이 세상의 관리행정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계획들 속에서 그들이 중추적인 개별존재들이 될 때, 그 때에는 세라핌천사의 행성 우두머리는 그들이 세라핌천사 무리에 임시적으로 배속되도록 허락하고 개인적 운명 보호 천사들로 하여금 이 필사자 예비자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지명한다. 모든 예비자들은 자아-의식 조절자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적인 공로와 영적인 재능의 보다 높은 조화우주 순환계들 속에서 활동한다.

거주 세계들에서 운명예비무리단으로 봉사하도록 영역의 필사자가 선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상 관련사들의 다양한 활동에서의 처리행위에서 수많은 가능한 비상 임무들을 위해 은밀하게 연습되어지는 특별한 수용능력.

2. 인간의 인정받음이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다른 대의명분에 전심으로 전념함.

3. 행성의 어려움들에 대처하고 절박한 세계적(世界的) 비상 상황에 대처함에서 비범한 융통성과 유란시아-이전(以前)의 유망한 체험을 가진 생각 조절자의 소유.

행성에서 천상의 봉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부서는 운명 지위를 가진 이들 필사자들의 연락 무리단으로 불리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보통의 세계는 70개의 분리된 운명의 무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의 관련사에 대한 현재의 초인간적 처리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란시아에는 12개의 운명예비무리단이 있는데, 세라핌천사의 감독을 받는 행성 집단마다 하나씩 있다.

유란시아의 운명 예비자들로 구성된 12개의 집단들은 가능성 있는 행성 비상사태들 속에서 행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중대한 상태들을 위하여 연습해 온 구체의 필사자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관된 이 부대들은 현재 9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작은 부대는 41명이고 가장 큰 것은 172명이다. 그보다 적은 숫자의 접촉 개인성들을 제외하고, 독특한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특별한 행성 위기가 있을 때 활동할 가능성을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 필사자 예비자들은 그들이 각각 배속되어 있는 그 부대들에 의해 선택되며, 생각 조절자와 세라핌천사 수호자 사명활동의 병합된 기법에 의해 깊은 마음속에서 마한

assume such responsibilities. Accordingly, as soon as men and women appear on the stage of temporal action with sufficient mental capacity, adequate moral status, and requisite spirituality, they are quickly assigned to the appropriate celestial group of planetary personalities as human liaisons, mortal assistants.

114:7.2 (1257.2) When human beings are chosen as protectors of planetary destiny, when they become pivotal individuals in the plans which the world administrators are prosecuting, at that time the planetary chief of seraphim confirms their temporal attachment to the seraphic corps and appoints personal destiny guardians to serve with these mortal reservists. All reservists have self-conscious Adjusters, and most of them function in the higher cosmic circles of intellectual achievement and spiritual attainment.

114:7.3 (1257.3) Mortals of the realm are chosen for service in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on the inhabited worlds because of:

114:7.4 (1257.4) 1. Special capacity for being secretly rehearsed for numerous possible emergency missions in the conduct of various activities of world affairs.

114:7.5 (1257.5) 2. Wholehearted dedication to some special social, economic, political, spiritual, or other cause, coupled with willingness to serve without human recognition and rewards.

114:7.6 (1257.6) 3. The possession of a Thought Adjuster of extraordinary versatility and probable pre-Urantia experience in coping with planetary difficulties and contending with impending world emergency situations.

114:7.7 (1257.7) Each division of planetary celestial service is entitled to a liaison corps of these mortals of destiny standing. The average inhabited world employs seventy separate corps of destiny, which a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superhuman current conduct of world affairs. On Urantia there are twelve reserve corps of destiny, one for each of the planetary groups of seraphic supervision.

114:7.8 (1257.8) The twelve groups of Urantia destiny reservists are composed of mortal inhabitants of the sphere who have been rehearsed for numerous crucial positions on earth and are held in readiness to act in possible planetary emergencies. This combined corps now consists of 962 persons. The smallest corps numbers 41 and the largest 172. With the exception of less than a score of contact personalities, the members of this unique group are wholly unconscious of their preparation for possible function in certain planetary crises. These mortal reservists are chosen by the corps to which they are respectively attached and are likewise trained

가지로 훈련되고 숙달된다. 수많은 다른 천상의 개인성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무의식적 훈련에 참여하며, 이러한 모든 특별한 준비에 있어서 중도자들은 귀중하고도 필수불가결한 봉사들을 수행한다.

많은 세계들에서는 보다 잘 적응된 2차 중도(中途) 창조체들이, 어떤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필사자의 생각 조절자와, 생각 조절자가 내주고 있는 마음에 대한 능숙한 침투를 통하여 두루, 다양한 정도로 접촉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이 유란시아에서 영어로 물질화되었던 것은 조화우주 조절의 바로 그러한 뜻밖의 병합에 의한 것이었다.) 진화 세계들의 그러한 잠재적 접촉 필사자들은 수많은 예비 무리단들 안에서 동원되며, 영적 문명이 증진되고 지고자들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앞을 내다보는 이들 작은 집단의 개인성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이들 운명예비무리단에 소속된 남자들과 여자들은 중도 창조체들의 간접하는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조절자들과 다양한 정도로 접촉한다; 그러나 바로 이들 필사자들은 살아있는 진리의 빛의 소멸 또는 진화적 문화의 몰락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이 예비 개인성들이 활동하는 드문 사회적 비상상태와 영적(靈的)으로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운명 예비자들이 인간 역사의 장을 드물게 장식해 왔다.

그 예비자들은 기본적인 행성 정보의 보호자들로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예비자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경우, 특정한 삶에 관한 자료들이 죽어 가는 그 예비자의 마음으로부터 보다 젊은 후계자에게로 전환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생각 조절자들의 연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조절자들은 이 예비 부대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활동한다.

유란시아에서 그 운명 예비 무리는 영구적인 우두머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것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그 자체의 영구적인 협의회들을 갖고 있다. 이것들 중에는 사법 협의회, 역사 협의회, 정치적 주권에 대한 협의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포용되어 있다. 때로는 그 무리 조직에 따라서, 전체 예비 무리의 명목상의 (필사자) 수장(首長)들이 특별한 활동을 위해 이 영구적인 협의회들에 의해서 임명되어 왔다. 그러한 예비자 우두머리들의 재직 기간은 대개 어떤 명확한 임무가 곧 성취될 때까지로 제한되면서, 약간의 시간 동안으로 국한된다.

유란시아 예비 무리는 아담-사람들과 안드-사람들의 시대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였으며, 보라색 혈통이 희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오순절 무렵에는 낮은 상태에 도달하였으나,

and rehearsed in the deep mind by the combined technique of Thought Adjuster and seraphic guardian ministry. Many times numerous other celestial personalities participate in this unconscious training, and in all this special preparation the midwayers perform valuable and indispensable services.

114:7.9 (1258.1) On many worlds the better adapted secondary midway creatures are able to attain varying degrees of contact with the Thought Adjusters of certain favorably constituted mortals through the skillful penetration of the minds of the latters' indwelling. (And it was by just such a fortuitous combination of cosmic adjustments that these revelations were materialized in the English language on Urantia.) Such potential contact mortals of the evolutionary worlds are mobilized in the numerous reserve corps, and it is, to a certain extent, through these small groups of forward-looking personalities that spiritual civilization is advanced and the Most Highs are able to rule in the kingdoms of men. The men and women of these reserve corps of destiny thus have various degrees of contact with their Adjusters through the intervening ministry of the midway creatures; but these same mortals are little known to their fellows except in those rare social emergencies and spiritual exigencies wherein these reserve personalities func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breakdown of evolutionary culture or the extinction of the light of living truth. On Urantia these reservists of destiny have seldom been emblazoned on the pages of human history.

114:7.10 (1258.2) The reservists unconsciously act as conservators of essential planetary information. Many times, upon the death of a reservist, a transfer of certain vital data from the mind of the dying reservist to a younger successor is made by a liaison of the two Thought Adjusters. The Adjusters undoubtedly function in many other ways unknown to us, in connection with these reserve corps.

114:7.11 (1258.3) On Urantia the reserve corps of destiny, though having no permanent head, does have its own permanent councils which constitute its governing organization. These embrace the judiciary council, the historicity council, the council on political sovereignty, and many others.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corps organization, titular (mortal) heads of the whole reserve corps have been commissioned by these permanent councils for specific function. The tenure of such reservist chiefs is usually a matter of a few hours' duration, being limited to the accomplishment of some specific task at hand.

114:7.12 (1258.4) The Urantia reserve corps had its largest membership in the days of the Adamites and Andites, steadily declining with the dilution of the violet blood and reaching its low point around

그 이후로는 예비 무리 회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유란시아에서 우주-의식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그 조화우주 예비무리단이 현재 1,000명 필사자를 넘어서고 조화우주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그들이 거주하는 현세의 구체를 훨씬 초월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들로 구성된 이 독특한 집단의 실제적인 본성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가 지역우주의 특정한 순환회로들로부터 비교적 영적으로 고립되어 조화우주에서 버림받았거나 또는 행성에서의 고아의 처지라는 느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행성에는 세계적 관련사들과 인간 운명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효력 있게 보살피는 초인간적 감동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적인 행정 정부에 대한 빈약한 관념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영주가 있었던 초기 시대 이후로, 유란시아는 세계의 성장과 인종적 발달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왔다. 사타니아에 있는 거주민이 사는 충성스러운 세계들은 현재의 유란시아처럼 그렇게 통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다른 세계들과 비교한다면, 너희가 사는 행성의 정부들은 그렇게 열등한 상태가 아니며; 오직 하나 또는 두 세계들만이 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몇몇 세계들은 약간 더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들은 너희와 평등한 수준에 있다.

지역우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행성 관리-행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네바돈 멜기세덱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개인적으로 두 번째 도착할 때까지 행정 정부와 관리-행정 체제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때가 되면, 이미 지나가지 않았다면, 전면적인 변화들이 행정 운영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통치에 대한 그러한 변화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바돈 우주에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에피소드가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미래 정부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천사장들의 순환회로와 분야별 본부들이 이 행성에 위치하는 장소이다.

고립된 너희의 세계는 우주의 조언에서 잊힌 상태가 아니다. 유란시아는 죄로 인하여 비난을 받아 조화우주 고아가 된 상태가 아니며 반란으로 인하여 신성한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다. 유버사로부터 구원자별로 그리고 계속하여 예루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하보나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은 모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이 구체가 불성실한 한 행정영주에 의해 마치 배신을 당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사랑스럽게 소중히 간

the time of Pentecost, since which time reserve corps membership has steadily increased.

114:7.13 (1258.5) (The cosmic reserve corps of universe-conscious citizens on Urantia now numbers over one thousand mortals whose insight of cosmic citizenship far transcends the sphere of their terrestrial abode, but I am forbidden to reveal the real nature of the function of this unique group of living human beings.)

114:7.14 (1258.6) Urantia mortals should not allow the comparative spiritual isolation of their world from certain of the local universe circuits to produce a feeling of cosmic desertion or planetary orphanage. There is operative on the planet a very definite and effective superhuman supervision of world affairs and human destinies.

114:7.15 (1258.7) But it is true that you can have, at best, only a meager idea of an ideal planetary government. Since the early times of the Planetary Prince, Urantia has suffered from the miscarriage of the divine plan of world growth and racial development. The loyal inhabited worlds of Satania are not governed as is Urantia. Nevertheless, compared with the other isolated worlds, your planetary governments have not been so inferior; only one or two worlds may be said to be worse, and a few may be slightly better, but the majority are on a plane of equality with you.

114:7.16 (1259.1) No one in the local universe seems to know when the unsettled status of the planetary administration will terminate. The Nebadon Melchizedeks are inclined to the opinion that little change will occur in the planetary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until Michael's second personal arrival on Urantia. Undoubtedly at this time, if not before, sweeping changes will be effected in planetary management. But as to the nature of such modifications of world administration, no one seems to be able even to conjecture. There is no precedent for such an episode in all the history of the inhabited worlds of the universe of Nebadon. Among the many things difficult to understand concerning the future government of Urantia, a prominent one is the location on the planet of a circuit and divisional headquarters of the archangels.

114:7.17 (1259.2) Your isolated world is not forgotten in the counsels of the universe. Urantia is not a cosmic orphan stigmatized by sin and shut away from divine watchcare by rebellion. From Uversa to Salvington and on down to Jerusem, even in Havona and on Paradise, they all know we are here; and you mortals now dwelling on Urantia are just as lovingly cherished and just as faithfully watched over as if the sphere had never been betrayed by a faithless Planetary Prince, even more so. It is eternally true,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직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그 분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이다.

[유란시아에 주둔한 세라핌천사 우두머리에
의해 제시되었음]

114:7.18 (1259.3) [Presented by the Chief of Seraphim
stationed on Urantia.]

제 115 편 최극 존재

⇨ 114

유랜시아 책

116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5 편 최극 존재

섹션

소개

- 제 1 장. 개념 구조의 상대성
- 제 2 장. 최극위를 위한 절대 기초
- 제 3 장. 기원적, 실재적 그리고 잠재적
- 제 4 장. 최극 실체의 근원들
- 제 5 장.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 제 6 장. 삼극일체들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 제 7 장. 최극자의 본성

PAPER 115

THE SUPREME BEING

SECTIONS

Introduction

- 1. Relativity of Concept Frames
- 2. The Absolute Basis for Supremacy
- 3. Original, Actual, and Potential
- 4. Sources of Supreme Reality
- 5.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Paradise Trinity
- 6.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Triadities
- 7. The Nature of the Supreme

소개

아버지 하느님에게, 아들신분은 엄청난 관계이다. 최극자 하느님에게, 성취는 지위에 필수전제조건이다.—사람은 무엇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INTRODUCTION

115:0.1 (1260.1) WITH God the Father, sonship is the great relationship. With God the Supreme, achievement is the prerequisite to status — one must do something as well as be something.

제 1 장. 개념 구조의 상대성

높건 낮건 모든 마음의 타고난 능력이,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주 틀을 형성할 수가 없다면, 부분적이고 미완성이고 그리고 진화하는 지능들은 주(主)우주 안에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최초의 이성적인 생각 원형틀을 형성할 능력도 없게 될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 결말을 해야될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참된 기원들을 꿰뚫어볼 수도 없다면, 그러한 마음은 틀림없이 결말들을 가정하면서 그리고 이들 마음에서-창조된 가정들의 틀 안에서 어떤 논리적 생각의 수단을 가질 수 있을 기원들을 발명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체 생각을 위한 그러한 우주 틀들이 이성적인 지능 작용에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더 큰 혹은 더 작은 정도에 이르도록 예외 없이 잘못된 것이다.

1. RELATIVITY OF CONCEPT FRAMES

115:1.1 (1260.2) Partial, incomplete, and evolving intellects would be helpless in the master universe, would be unable to form the first rational thought pattern, were it not for the innate ability of all mind, high or low, to form a *universe frame* in which to think. If mind cannot fathom conclusions, if it cannot penetrate to true origins, then will such mind unfailingly postulate conclusions and invent origins that it may have a means of logical thought within the frame of these mind-created postulates. And while such universe frames for creature thought are indispensable to rational intellectual operations, they are, without exception, erroneous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우주의 개념적인 틀들은 오직 상대적으로 참이다; 그들은 확장되고 있는 조화우주 이해의 확대 앞에서 결국에는 길을 내줘야만 하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발판들이다.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 도덕성, 윤리, 의무, 사랑, 신성, 기원, 실존, 목적, 운명, 시간, 공간, 심지어는 신(神)에 대한 납득도 오직 상대적으로 참이다. 하느님은 아버지 개념보다 아주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하느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창조체 관계에서의 아버지-아들 묘사는, 오르본톤에서, 하보나에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달성될 신(神)에 대한, 저들 초(超)-필사자 개념들에 의해 증강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의 필사자 우주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높은 틀들을 그려볼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필사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주 실체의 다양한 차원들이 유한, 절대, 그리고 아(亞)절대라고 명명되었다. 이것들 중에서 오직 절대자만 분별불가하게 영원하고, 참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아(亞)절대체들과 유한체들은 무한의 기원적이고 원초적인 절대 실체에서의 파생적인, 변형, 분별된-자격, 그리고 희석들이다.

유한자의 영역은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의 덕분으로 존재한다. 높고 낮은 유한 창조체들은 이론들을 제창할 수 있으며, 조화우주 섭리 속에서 유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들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주는 설명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유한한 창조체가 조상이 되는 존재들, 창조자들 또는 이전-창조자들의 선행되는 행동들과 이전-실존하는 의지에 호소하지 않고는 그 자신의 개별적 실존에 대한 이성적 원인을 제공할 수 없다.

제 2 장. 최극위를 위한 절대 기초

실존적 입장에서 볼 때, 은하계들에 두루 어떤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신 이 안에 고유하게 있는 무한의 완성은 일곱 절대자들에서 영원하게 제시되어 있고, 삼원일체에서 기능적으로 관계적-연합되어있으며, 삼극일체에서 전달되도록 관계적-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이 이 절대적 관계적-연합들에서 그렇게 실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조화우주 체험적인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유한 창조체의 관점에서는, 무한은 많은 잠재적인 것, 현재 제시되어 있는 실재성이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속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가치는 우주 실체에서 독특한 요소이다. 우리는 무한하고 신성한 어떤 것의 가치가 어떻게 증가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신(神)의 관계들 속에서조차 가치가 증강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발

115:1.2 (1260.3) Conceptual frames of the universe are only relatively true; they are serviceable scaffolding which must eventually give way before the expansions of enlarging cosmic comprehension. The understanding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morality, ethics, duty, love, divinity, origin, existence, purpose, destiny, time, space, even Deity, are only relatively true. God is much, much more than a Father, but the Father is man's highest concept of God; nonetheless, the Father-Son portrayal of Creator-creature relationship will be augmented by those supermortal conceptions of Deity which will be attained in Orvonton, in Havona, and on Paradise. Man must think in a mortal universe fram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he cannot envision other and higher frames within which thought can take place.

115:1.3 (1260.4) In order to facilitate mortal comprehens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diverse levels of cosmic reality have been designated as finite, absonite, and absolute. Of these only the absolute is unqualifiedly eternal, truly existential. Absonites and finites are derivatives, modifications, qualifications, and attenuations of the original and primordial absolute reality of infinity.

115:1.4 (1260.5) The realms of the finite exist by virtue of the eternal purpose of God. Finite creatures, high and low, may propound theories, and have done so, as to the necessity of the finite in the cosmic economy, but in the last analysis it exists because God so willed. The universe cannot be explained, neither can a finite creature offer a rational reason for his own individual existence without appealing to the prior acts and pre-existent volition of ancestral beings, Creators or procreators.

2. THE ABSOLUTE BASIS FOR SUPREMACY

115:2.1 (1261.1) From the existential standpoint, nothing new can happen throughout the galaxies, for the completion of infinity inherent in the I AM is eternally present in the seven Absolutes, is functionally associated in the triunities, and is transmutively associated in the triodities. But the fact that infinity is thus existentially present in these absolute associations in no way makes it impossible to realize new cosmic experientials. From a finite creature's viewpoint, infinity contains much that is potential, much that is on the order of a future possibility rather than a present actuality.

115:2.2 (1261.2) Value is a unique element in universe reality. We do not comprehend how the value of anything infinite and divine could possibly be increased. But we discover that *meanings* can be modified if not augmented even in the relations of

견한다. 체험적 우주들에게는 신성한 가치들조차도 실제 의미들에 대한 확대된 이해에 의해 실제성들로서 증가된다.

모든 체험적 차원에서의 우주적 창조와 진화에 대한 전체 개요는, 외견상 분명하게 잠재성들이 실제성으로 전환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변형은 공간 잠재력과 마음 잠재력 그리고 영 잠재력의 영역에서 똑같이 행하여야만 한다.

조화우주의 가능성들이 실제적 실존으로 되는 분명한 방법은 여러 차원에 걸쳐 다양하며, 유한에서는 체험적인 진화이며 아(亞)절대 세계에서는 체험적 생겨남이다. 실존적 무한은 모든 것을 포함함에서 정말로 분별불가적이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포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진화적인 유한 체험 과정을 위한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적 성장의 가능성은 최극자에 그리고 그 안에 영향을 미치는 삼극일체 관계들을 통하여 우주적 실재가 된다.

제 3 장. 기원적, 실재적 그리고 잠재적

절대 조화우주는 개념적으로 한계가 없다; 이 일차적 실체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 정의(定意)를 내리는 것은 무한에 분별된-자격들을 부여하는 것이고 영원의 순수한 개념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무한한-영원, 영원한-무한에 대한 관념은 범위에서는 분별불가적이고 사실에서는 절대적이다. 무한의 실제 또는 실체의 무한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언어가 유란시아에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한 조화우주에서 유한한 창조체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는, 시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실존에 대한 왜곡된 반영과 희석된 개념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한다.

마음은 그러한 실체의 합일을 먼저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고는 절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희망을 결코 가질 수 없다. 마음은 모든 다양함을 통합하지만, 그러한 다양함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곳에서, 마음은 납득이 가는 개념들을 명확히 나타내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무런 기초도 없음을 발견한다.

무한의 시원적 균형 상태는 인간이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분할되기를 요구한다. 이 글들에서—창조체 마음의 최초의 가정—스스로 이신으로 표현되는 무한에는 합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불가적 합일을 여전히 이루는 한편 이 합일이 어떻게 하여 2원성(二元性)과 3원성(三元性) 그리고 다양성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창조체는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느님의 복수(複數) 개인성구현과 나란히 있는 나뉘지 않는 삼위일체 신(神)을 잠깐 멈추어서 심사숙고하고자 할 때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 개념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이유

infinite Deity. To the experiential universes even divine values are increased as actualities by enlarged comprehension of reality meanings.

115:2.3 (1261.3) The entire scheme of universal creation and evolution on all experiencing levels is apparently a matter of the conversion of potentialities into actualities; and this transmutation has to do equally with the realms of space potency, mind potency, and spirit potency.

115:2.4 (1261.4) The apparent method whereby the possibilities of the cosmos are brought into actual existence varies from level to level, being experiential evolution in the finite and experiential eventuation in the absonite. Existential infinity is indeed unqualified in all-inclusiveness, and this very all-inclusiveness must, perforce, encompass even the possibility for evolutionary finite experiencing. And the possibility for such experiential growth becomes a universe actuality through triodity relationships impinging upon and in the Supreme.

3. ORIGINAL, ACTUAL, AND POTENTIAL

115:3.1 (1261.5) The absolute cosmos is conceptually without limit; to define the extent and nature of this primal reality is to place qualifications upon infinity and to attenuate the pure concept of eternity. The idea of the infinite-eternal, the eternal-infinite, is unqualified in extent and absolute in fact. There is no langu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of Urantia adequate to express the reality of infinity or the infinity of reality. Man, a finite creature in an infinite cosmos, must content himself with distorted reflections and attenuated conceptions of that limitless, boundless, never-beginning, never-ending existence the comprehension of which is really beyond his ability.

115:3.2 (1261.6) Mind can never hope to grasp the concept of an Absolute without attempting first to break the unity of such a reality. Mind is unifying of all divergencies, but in the very absence of such divergencies, mind finds no basis upon which to attempt to formulate understanding concepts.

115:3.3 (1261.7) The primordial stasis of infinity requires segmentation prior to human attempts at comprehension. There is a unity in infinity which has been expressed in these papers as the I AM — the premier postulate of the creature mind. But never can a creature understand how it is that this unity becomes duality, triunity, and diversity while yet remaining an unqualified unity. Man encounters a similar problem when he pauses to contemplate the undivided Deity of Trinity alongside the plural personalization of God.

115:3.4 (1262.1) It is only man's distance from infinity

는 사람이 무한과 얼마나 먼가를 보여줄 뿐이다. 무한은 한 편에서는 통합의 상태인 반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끝이나 제한이 없는 다양성이다. 무한은, 유한한 지능체들에 의해 관찰된, 창조체 철학과 유한 형이상학의 최대 역설이다. 사람의 영적 본성이 무한한 아버지께 경배하는 체험에까지 도달하더라도, 사람의 지적 이해 능력은 최극존재의 최대 개념에 의해서 고갈된다. 최극자를 넘어서면, 개념들은 점점 더 이름일 뿐이다; 실체에 대한 참된 명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며; 점점 더 초(超)유한에 대하여 유한하게 납득하는 창조체의 구체적 투사 활동이 된다.

절대 차원에 대한 한 가지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위상들의 가정을 포함한다:

1. 기원자. 첫째근원이며 중심에 대한 분별 불가적 개념, 모든 실체가 기원되는 스스로 이신 이의 근원 현시활동.

2. 실재자. 둘째근원이며 중심, 셋째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이라는 실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연합.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 섬으로 이루어진 이 삼극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에 대한 실재적 계시를 이룬다.

3. 잠재자. 신(神) 절대자, 분별불가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라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의 연합. 실존적 잠재성의 이 삼극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에 대한 잠재적 계시를 이룬다.

기원자와 실재자 그리고 잠재자의 상호-연관은 모든 우주 성장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무한 속에서의 긴장 상태들을 초래한다; 성장은 칠중자와 최극자 그리고 궁극자의 본성이다.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관계적-연합에서, 잠재성은 절대적인 반면 실재성은 창발적이다; 둘째근원이며 중심과 셋째근원이며 중심 그리고 파라다이스 근원이며 중심의 관계적-연합에서는 실재성이 절대적인 반면 잠재성은 창발적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기원성 안에서는 실재성이나 잠재성 중 어떤 것도 실존하거나 창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아버지는 이시다.

시간의 견지에서 볼 때, 실재자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것이다; 잠재자는 있게 되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기원자는 현재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다. 영원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원자와 실재자 그리고 잠재자 사이의 차이점들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삼원적 본질특성들은 파라다이스-영원 차원들에서는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다.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이다—단지 시간과 공간 속에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that causes this concept to be expressed as one word. While infinity is on the one hand UNITY, on the other it is DIVERSITY without end or limit. Infinity, as it is observed by finite intelligences, is the maximum paradox of creature philosophy and finite metaphysics. Though man's spiritual nature reaches up in the worship experience to the Father who is infinite, man's intellectual comprehension capacity is exhausted by the maximum conception of the Supreme Being. Beyond the Supreme, concepts are increasingly names; less and less are they true designations of reality; more and more do they become the creature's projection of finite understanding toward the superfinite.

115:3.5 (1262.2) One basic conception of the absolute level involves a postulate of three phases:

115:3.6 (1262.3) 1. *The Original*. The unqualified concept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that source manifestation of the I AM from which all reality takes origin.

115:3.7 (1262.4) 2. *The Actual*. The un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actuality, the Second, Third, and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This triodity of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and the Paradise Isle constitutes the actual revela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3.8 (1262.5) 3. *The Potential*. The union of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the Deity, Unqualified, and Universal Absolutes. This triodity of existential potentiality constitutes the potential revela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3.9 (1262.6) The interassociation of the Original,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yields the tensions within infinity which result in the possibility for all universe growth; and growth is the nature of the Sevenfold,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15:3.10 (1262.7) In the association of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potentiality is absolute while actuality is emergent; in the association of the Second, Third, and Paradise Sources and Centers, actuality is absolute while potentiality is emergent; in the origi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we cannot say that either actuality or potentiality is either existent or emergent — *the Father is*.

115:3.11 (1262.8) From the time viewpoint, the Actual is that which was and is; the Potential is that which is becoming and will be; the Original is that which is. From the eternity viewpoi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are not thus apparent. These triune qualities are not so distinguished on Paradise-eternity levels. In eternity all is — only has all not yet been revealed in time and space.

창조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재성은 본체이고 잠재성은 수용능력이다. 실재성은 중심에 존재하고 그곳으로부터 가장자리의 무한 속으로 확대한다; 잠재성은 무한성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을 향하여 들어오고 그리고는 만물의 중심에서 한점으로 모인다. 근원성은, 잠재들로부터 실제들로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실제들로부터 잠재화를 이루는, 실제 변형에서의 순환주기의 이원적(二元的) 운동들을, 처음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것이다.

잠재성의 세 절대자들은 조화우주의 순전히 영원한 차원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하위-절대적인 그러한 차원들에서는 결코 기능할 수 없다. 실제의 하강하는 차원들에서는 잠재성의 삼극일체는 궁극자와 함께 그리고 최극자에서 현시된다. 잠재는 어떤 하위-절대 차원의 한 부분에 대해 시간적-실체화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합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화우주에 실존하는 것들이 그들의 중심을 갖는 것은 실재성의 삼극일체에서이다; 영이나 마음 또는 에너지이던 간에 모든 것은 아들, 영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이 연관에 중심을 둔다. 영(靈) 아들의 개인성은 우주 전체에 걸친 모든 개인성의 주(主) 원형들이다. 파라다이스 섬의 본체는 주(主) 원형들로서, 하보나는 이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며, 초우주는 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계시이다. 공동 행위자는 즉시 그리고 동시에 우주 에너지의 마음 활성화, 영(靈) 목적의 개념화이며 그리고 의지적인 목적을 지닌 물질적 차원과 동기를 지닌 영적인 차원들의 수학적 인과관계들의 집대성활동이다. 유한한 우주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들, 영과 파라다이스는 최극자 안에서 조건을 갖추고 분별화되는 데에 따르는 그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기능한다.

(신(神)의) 실재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추구하는 그것이다. (인간에서의 신성) 잠재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탐구에서 진화하는 그것이다. 기원자는 실재인 사람, 잠재인 사람 그리고 영원인 사람의 공존과 집대성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다.

조화우주의 최종적인 활력은 실제의 잠재성으로부터 실재성으로 계속적인 전환을 행해야만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변형에 끝이 있겠지만, 사실에서는 잠재와 실재가 모두 기원(스스로 이신 이)에서 순환회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정체화구현은 우주의 발전적 진보에 제한을 두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이신 이와 정체성 확인되는 어떤 것이든지 진보에 대한 끝남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데 왜냐하면 스스로 이신 이의 잠재의 실재성이 절대적이며 스스로 이신 이의 실재의 잠재성 역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재들은 지금까지 불가능하였던 잠재들의 실현에 새로운 큰길을 열어 줄 것이다—모든 인간 결정은 인간 체험 속에서 새

115:3.12 (1262.9) From a creature's viewpoint, actuality is substance, potentiality is capacity. Actuality exists centermost and expands therefrom into peripheral infinity; potentiality comes inward from the infinity periphery and converge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Originality is that which first causes and then balances the dual motions of the cycle of reality metamorphosis from potentials to actuals and the potentializing of existing actuals.

115:3.13 (1262.10) The three Absolutes of potentiality are operative on the purely eternal level of the cosmos, hence never function as such on subabsolute levels. On the descending levels of reality the triodity of potentiality is manifest with the Ultimate and upon the Supreme. The potential may fail to time-actualize with respect to a part on some subabsolute level, but never in the aggregate. The will of God does ultimately prevail, not always concerning the individual but invariably concerning the total.

115:3.14 (1263.1) It is in the triodity of actuality that the existents of the cosmos have their center; be it spirit, mind, or energy, all center in this association of the Son, the Spirit, and Paradise. The personality of the spirit Son is the master pattern for all personality throughout all universes. The substance of the Paradise Isle is the master pattern of which Havona is a perfect, and the superuniverses are a perfecting, revelation. The Conjoint Actor i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mind activation of cosmic energy, the conceptualization of spirit purpose, and the integration of the mathematical causes and effects of the material levels with the volitional purposes and motives of the spiritual level. In and to a finite universe the Son, Spirit, and Paradise function in and upon the Ultimate as he is conditioned and qualified in the Supreme.

115:3.15 (1263.2) Actuality (of Deity) is what man seeks in the Paradise ascent. Potentiality (of human divinity) is what man evolves in that search. The Original is what makes possible the coexistence and integration of man the actual, man the potential, and man the eternal.

115:3.16 (1263.3) The final dynamics of the cosmos have to do with the continual transfer of reality from potentiality to actuality. In theory, there may be an end to this metamorphosis, but in fact, such is impossible since the Potential and the Actual are both encircuited in the Original (the I AM), and this identification makes it forever impossible to place a limit on the developmental progression of the universe. Whatsoever is identified with the I AM can never find an end to progression since the actuality of the potentials of the I AM is absolute, and the potentiality of the actuals of the I AM is also absolute. Always will actuals be opening up new avenues of the realization of hitherto

로운 실체를 실재화할 뿐만 아니라 인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용력을 열어 보인다. 사람은 모든 자녀에서 살아있고, 모른시아 진보자는 하느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

성장 안에서 정적인 것은 전체 조화우주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의 기반—절대적 실재인 것—은 분별불가이기 때문이며, 성장의 가능성—절대적 잠재인 것들—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견지에서, 우주의 철학자들은 끝남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정된 시각에서, 정말로 여러 끝남들. 많은 활동들의 종결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우주 차원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는, 종결들은 없으며, 다만 한 위상에서 다른 위상으로의 변화들이 있을 뿐이다. 주(主)우주 의 주요 연대기는 여러 우주 시대들, 하보나, 초우주, 그리고 외부 우주 시대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연차적인 관계들의 이 기본적인 구분들도 끝이 없는 영원의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경계표에 불과하다.

최극존재의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에 대한 최종적인 통찰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이라는 개념 차원들을 넘어서 있는 궁극적 신성의 아(亞)절대적 본질특성들로 발전하는 창조제에게만 보일 수 있다.

제 4 장. 최극 실체의 근원들

최극자 하느님의 기원(起源)에 대한 어떤 고려도 반드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기원적 신(神)이며, 반면에 최극자는 유래된 신(神)이기 때문이다. 최극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고려도 반드시 실존적 삼극일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절대적 실재성과 모든 무한 잠재성을 (첫째 근원이며 중심에 관련하여)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적 최극자는 실존의 유한 차원에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잠재들이 실재들로—변환—변형의 정점에 달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지적인 초점이다. 두 가지 삼극일체들, 실재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은 우주에서 성장에 대한 상호관계들의 전체를 포함한다.

최극자의 근원은—영원하고 실재적이며 나뉘지 않은 신(神)—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 있다. 최극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영(靈) 개인이다, 그리고 이 영 개인은 삼위일체로부터 파생한다. 그러나 최극자는 2차적으로—진화적 성장—성장의 신(神)이고 이 성장은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두 개의 삼극일체로부터 기원된다.

만일, 무한한 삼극일체들이 유한 차원에서 기

impossible potentials — every human decision not only actualizes a new reality in human experience but also opens up a new capacity for human growth. The man lives in every child, and the morontia progressor is resident in the mature God-knowing man.

115:3.17 (1263.4) Statics in growth can never appear in the total cosmos since the basis for growth — the absolute actuals — is unqualified, and since the possibilities for growth — the absolute potentials — are unlimited. From a practical viewpoint the philosophers of the univers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end*.

115:3.18 (1263.5) From a circumscribed view there are, indeed, many ends, many terminations of activities, but from a larger viewpoint on a higher universe level, there are no endings, merely transitions from one phase of development to another. The major chronicity of the master universe is concerned with the several universe ages, the Havona, the superuniverse, and the outer universe ages. But even these basic divisions of sequence relationships cannot be more than relative landmarks on the unending highway of eternity.

115:3.19 (1263.6) The final penetration of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the Supreme Being could only open up to the progressing creature those absonite qualities of ultimate divinity which lie beyond the concept level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4. SOURCES OF SUPREME REALITY

115:4.1 (1263.7) Any consideration of the *origins* of God the Supreme must begin with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Trinity is original Deity while the Supreme is derived Deity. Any considera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must give consideration to the existential triadities, for they encompass all absolute actuality and all infinite potentiality (in conjunction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 evolutionary Supreme is the culminating and personally volitional focus of the transmutation — the transformation — of potentials to actuals in and on the finite level of existence. The two triadities, actual and potential, encompass the totality of the interrelationships of growth in the universes.

115:4.2 (1264.1) The source of the Supreme is in the Paradise Trinity — eternal, actual, and undivided Deity. The Supreme is first of all a spirit person, and this spirit person stems from the Trinity. But the Supreme is secondly a Deity of growth — evolutionary growth — and this growth derives from the two triadities, actual and potential.

115:4.3 (1264.2) If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the

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잠시 멈추어서 그들의 바로 그 무한성이 유한의 잠재성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라; 무한성은 가장 낮게 그리고 최상으로 분별화된 유한한 실존으로부터 가장 높고 그리고 분별불가적인 절대 실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무한이 유한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 무한이 실재적으로 유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현시 되는지를 납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필사 사람에게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들은, 절대적인 하느님이 (절대로서) 모든 우주의 가장 낮고 작은 의지 창조체와도 실재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영원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실체와 잠재를 공동으로 포함하는 삼극일체들은 최극존재와 관련하여 유한 차원에 현시된다. 그러한 현시활동 기법은 직접적인 동시에 간접적이다: 삼극일체 관계들이 최극자에서 직접적으로 반향하는 한 직접적이고 그들이 아(亞)절대의 결국 생겨난 차원을 통하여 유래되는 한 간접적이다.

전체 유한 실체인 최극 실체는 외부공간의 분별불가 잠재들과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분별불가 실체들 사이에서 역동적인 성장 과정에 있다. 유한 권역은 파라다이스의 아(亞)절대 대리자들과 시간의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협동을 통하여 그렇게 사실화 한다. 세 명의 위대한 잠재적 절대자들의 분별화된 가능성들을 성숙시키는 행동은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과 그들의 초월 연관-동료들의 아(亞)절대 기능이다. 그리고 이 생겨남이 일정 지점을 달성하게 되면,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이 진화하는 우주들을 사실적 존재로 만드는 오랜 세월의 임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다.

최극위의 성장은 삼극일체들로부터 유래한다; 최극자의 영(靈) 개인은 삼위일체로부터 기원된다; 그러나 전능자의 힘 특권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결과에 근거되는 반면, 전능 최극자의 힘 특권들과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과의 결합은, 이 진화하는 신(神) 안에 결합하는 요소로서 최극자의 마음을 증여하는, 공동 행위자의 사명활동의 덕분으로 발생하여 자리를 잡는다.

제 5 장.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최극존재는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영 본성의 실체를 위하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실존과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최극자의 성장이 삼극일체 관계의 문제인 반면,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

infinite triodities can function on the finite level, pause to consider that their very infinity must in itself contain the potentiality of the finite; infinity encompasses all things ranging from the lowest and most qualified finite existence to the highest and unqualifiedly absolute realities.

115:4.4 (1264.3) It is not so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the infinite does contain the finite as it is to understand just how this infinite actually is manifest to the finite. But the Thought Adjusters indwelling mortal man are one of the eternal proofs that even the absolute God (as absolute) can and does actually make direct contact with even the lowest and least of all universe will creatures.

115:4.5 (1264.4) The triodities which collectively encompass the actual and the potential are manifest on the finite level in conjunction with the Supreme Being. The technique of such manifestation is both direct and indirect: direct in so far as triodity relations re-percuss directly in the Supreme and indirect in so far as they are derived through the eventuated level of the absonite.

115:4.6 (1264.5) Supreme reality, which is total finite reality, is in process of dynamic growth between the unqualified potentials of outer space and the unqualified actuals at the center of all things. The finite domain thus factualiz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absonite agencies of Paradise and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The act of maturing the qualified possibilities of the three great potential Absolutes is the absonite function of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and their transcendental associates. And when these eventualities have attained to a certain point of maturation,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emerge from Paradise to engage in the age-long task of bringing the evolving universes into factual being.

115:4.7 (1264.6) The growth of Supremacy derives from the triodities;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from the Trinity; but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are predicated on the divinity successes of God the Sevenfold, while the conjoining of the power prerogatives of the Almighty Supreme with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takes place by virtue of the ministry of the Conjoint Actor, who bestowed the mind of the Supreme as the conjoining factor in this evolutionary Deity.

5.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PARADISE TRINITY

115:5.1 (1264.7) The Supreme Being is absolutely dependent on the existence and action of the Paradise Trinity for the reality of his personal and spirit nature. While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a

인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의존하고 그로부터 기원되었으며, 그것은 최극자의 진화적 성장이 그 주위에 점차적으로 전개되는 완전하고 무한한 안정의 절대적 중심-근원으로서 항상 남아 있다.

삼위일체의 기능은 최극자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최극위의 기능의 차원을 포함하여 모든 (전체) 차원에서 기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보나 시대가 초우주들의 시대에게 양보하듯이, 즉각적인 창조자로서의 삼위일체의 인식 가능한 행동은 그렇게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자녀들의 창조적 행동에게 양보하고 있다.

제 6 장. 삼극일체들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

실재성의 삼극일체는 하보나-이후 신(新)시대들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계속한다; 파라다이스 중력은 물질적 실존의 기본적 단위들을 장악하고, 영원한 아들의 영 중력은 영 실존의 근본적 가치들 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공동 행위자의 마음 중력은 지적 실존의 모든 극히 중대한 의미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

그러나 창조적 활동의 각 단계가 미지의 공간을 통하여 뚫어나갈 때, 그것은—절대 파라다이스 섬과 거기에 거주하는 무한 신(神)들—중앙에 자리잡은 창조적 기체들과 신성한 개인성들에 의한 직접 행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서 기능하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화우주 실존의 연속적인 이차원들은 무한의 세 절대 개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최극존재는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파라다이스 섬의 비(非)개인적 실체 안에 명백하게 현시되지 않은 조화우주 사명활동을 위한 가능성들을 포용한다. 이 말은 이들 세 기본적 실재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마땅히 존중하고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최극자의 성장은 신(神)과 파라다이스의 이들 실재성들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神) 절대자와 우주 절대자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의 발전들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최극자는 하느님과-같음을-이름을 달성하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창조체와 창조자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유한 신(神)은 또한 대우주의 유한한 가능성들에 대한 창조체와 창조자 정복의 결과로서 성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최극자의 행동은 2중이다: 집중적으로는 파라다이스와 신(神)을 향하고, 광범위하게 잠재의 절대자의 무한성을 향한다.

matter of triodity relationship, the spirit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is dependent upon, and is derived from, the Paradise Trinity, which ever remains as the absolute center-source of perfect and infinite stability around which the evolutionary growth of the Supreme progressively unfolds.

115:5.2 (1265.1) The function of the Trinity is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Supreme, for the Trinity is functional on all (total) levels, including the level of the function of Supremacy. But as the age of Havona gives way to the age of the superuniverses, so does the discernible action of the Trinity as immediate creator give way to the creative acts of the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6. RELATION OF THE SUPREME TO THE TRIODITIES

115:6.1 (1265.2) The triodity of actuality continues to function directly in the post-Havona epochs; Paradise gravity grasps the basic units of material existence, the spirit gravity of the Eternal Son operates directly upon the fundamental values of spirit existence, and the mind gravity of the Conjoint Actor unerringly clutches all vital meanings of intellectual existence.

115:6.2 (1265.3) But as each stage of creative activity proceeds out through uncharted space, it functions and exists farther and farther removed from direct action by the creative forces and divine personalities of central emplacement — the absolute Isle of Paradise and the infinite Deities resident thereon. These successive levels of cosmic existence become, therefore, increasingly dependent upon developments within the three Absolute potentialities of infinity.

115:6.3 (1265.4) The Supreme Being embraces possibilities for cosmic ministry that are not apparently manifested in the Eternal Son, the Infinite Spirit, or the nonpersonal realities of the Isle of Paradise. This statement is made with due regard for the absoluteness of these three basic actualities, but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not only predicated on these actualities of Deity and Paradise but is also involved in developments within the Deity, Universal, and Unqualified Absolutes.

115:6.4 (1265.5) The Supreme not only grows as the Creators and creatu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attain to Godlikeness, but this finite Deity also experiences growth as a result of the creature and Creator mastery of the finite possibilities of the grand universe. The motion of the Supreme is twofold: intensively toward Paradise and Deity and extensively toward the limitlessness of the Absolutes of potential.

현재의 우주 시대에는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행동이 대우주의 상승하고 하강하는 개인성들에서 계시되어 있다.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과 그들의 신성한 모든 연관-동료들은 최극자의 밖으로 발산하는 행동의 반영이다, 반면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최극위의 안으로 향하여 모여드는 경향을 암시한다.

유한한 신(神)은 이원적(二元的) 상관성을 항상 추구하며, 안쪽으로는 파라다이스와 그것으로부터의 신(神)들을 향하고 바깥쪽으로는 무한과 그 가운데의 절대들을 향한다. 창조자 아들들에서 개인성구현되고 힘 통제자들에서 힘을 키우는 파라다이스-창조적 신성(神性)의 강력한 분출은 잠재성의 권역 안으로의 최극위의 밖을 향한 광대한 파동을 의미한다, 반면 대우주의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끝없는 행렬은 파라다이스 신(神)과의 합일을 향하는 최극위의 강력한 안쪽 파동을 입증한다.

인간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행동을 때때로 보이는 것에 나타난 그 효과들을 관찰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들에서 최극위의 움직임들과 경향들을 대우주의 개인성들과 원형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화들의 반향들을 관찰함으로써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배워왔다.

비록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파라다이스 신(神)에 대한 유한한 반영으로서, 최극자가 외부 공간으로의 영원한 진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세 절대 잠재의 분별된-자격으로, 이 최극존재는 파라다이스 응집을 언제까지나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二元的) 행동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우주들에서의 기본활동들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7 장. 최극자의 본성

최극 신(神)에서 스스로 이신 이—아버지는 지위의 무한성, 존재의 영원성 그리고 본성의 절대성에 선천적인 제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완벽한 해방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최극자 하느님은 우주기능의 체험적 분별된-자격들에 종속됨으로서만 모든 실존적 한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체험을 위한 수용력 달성에서, 유한의 하느님은 또한 그것을 위한 필요성에 종속되었다; 영원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함에서, 전능자는 시간이라는 장벽들과 마주친다; 그리고 최극자는 성장과 발전을 실존의 부분성의 결과와 본성의 미완성, 존재의 비(非)절대성으로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유한한 진보를 노력에, 창조체의 성취를 인내에, 그리고 개인성 개발을 신앙에

115:6.5 (1265.6)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dual motion is revealed in the descending and ascending personalities of the grand universe.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and all their divine associates are reflective of the outward, diverging motion of the Supreme, while the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are indicative of the inward, converging trend of Supremacy.

115:6.6 (1265.7) Always is the finite Deity seeking for dual correlation, inward toward Paradise and the Deities thereof and outward toward infinity and the Absolutes therein. The mighty eruption of the Paradise-creative divinity personalizing in the Creator Sons and powerizing in the power controllers, signifies the vast outsurge of Supremacy into the domains of potentiality, while the endless procession of the ascending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witnesses the mighty insurge of Supremacy toward unity with Paradise Deity.

115:6.7 (1265.8) Human beings have learned that the motion of the invisible may sometimes be discerned by observing its effects on the visible; and we in the universes have long since learned to detect the movements and trends of Supremacy by observing the repercussions of such evolutions in the personalities and patterns of the grand universe.

115:6.8 (1266.1) Though we are not sure, we believe that, as a finite reflection of Paradise Deity, the Supreme is engaged in an eternal progression into outer space; but as a qualification of the three Absolute potentials of outer space, this Supreme Being is forever seeking for Paradise coherence. And these dual motions seem to account for most of the basic activities in the presently organized universes.

7. THE NATURE OF THE SUPREME

115:7.1 (1266.2) In the Deity of the Supreme the Father-I AM has achieved relatively complete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inherent in infinity of status, eternity of being, and absoluteness of nature. But God the Supreme has been freed from all existential limitations only by having become subject to experiential qualifications of universal function. In attaining capacity for experience, the finite God also becomes subject to the necessity therefor; in achieving liberation from eternity, the Almighty encounters the barriers of time; and the Supreme could only know growth and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of partiality of existence and incompleteness of nature, nonabsoluteness of being.

115:7.2 (1266.3) All this must be according to the Father's plan, which has predicated finite progress

근거를 두어온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틀림 없다. 최극자의 체험-진화를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아버지는 유한한 창조체들이 우주들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체험적 진보에 의하여 때로는 최극위의 신성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최극자와 심지어는 궁극자를 포함하여, 일곱 절대자들의 분별불가한 가치들을 제외하고, 모든 실체는 상대적이다. 최극위라는 사실은 파라다이스 힘, 아들 개인성 그리고 공동 행위에 근거를 두지만, 그러나 최극자의 성장은 신(神) 절대자, 분별불가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합성하고 통합하는 이—최극자 하느님—신(神)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인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본성의 무한한 합일에 의해서 대우주 전체에 드리워진 유한 그림자의 개인화구현이다.

삼극일체들이 유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최극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최극자는 절대 실체와 절대 잠재의 본성들에 대한 유한 분별된-자격들의 조화우주 총합이며 신(神) 초점화구현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절대적 필연이라고 여겨진다; 일곱 주(主) 영들은 분명히 삼위일체 필연들이다; 최극자의 힘-마음-영-개인성 실체화구현은 진화적 필연이 되어야만 한다.

최극자 하느님은 분별불가한 무한성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대성 차원들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화적 체험을 초점화구현 시키고 요약하고 포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의 신(神) 본성 안에서 이 형태의 실체 인식의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궁극자 하느님의 초(超)체험적 그리고 초(超)유한적 현시활동인, 필연적인 생겨남의 출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극존재는 기원이 되는 삼위일체와의 관계, 활동의 우주 그리고 즉각적 운명의 궁극 삼위일체; 그러한 근원, 기능 그리고 운명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하게 올바르게 알 수가 없다.

최극자는 진화적 체험을 취합하는 과정에 의해서, 유한을 아(亞)절대와 연결한다, 공동 행위자의 마음이 개인적 아들의 신성한 영성(靈性)과 파라다이스 원형들의 불변하는 에너지들을 집대성시키는 것과 같으며, 우주 절대자의 현존이 신(神) 활성화를 분별불가 반응성과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이 합일은 모든 사물들과 모든 존재들의 첫째 아버지-원인과 그리고 근원-원형들의 기원적 합일에서의 탐지되지 않고 작용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계시임에 틀림없다.

upon effort, creature achievement upon perseveranc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upon faith. By thus ordaining the experience-evolution of the Supreme, the Father has made it possible for finite creatures to exist in the universes and, by experiential progression, sometime to attain the divinity of Supremacy.

115:7.3 (1266.4) Including the Supreme and even the Ultimate, all reality, excepting the unqualified values of the seven Absolutes, is relative. The fact of Supremacy is predicated on Paradise power, Son personality, and Conjoint action, but the growth of the Supreme is involved in the Deity Absolute,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the Universal Absolute. And this synthesizing and unifying Deity — God the Supreme —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finite shadow cast athwart the grand universe by the infinite unity of the unsearchable nature of the Paradise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15:7.4 (1266.5) To the extent that the triodities are directly operative on the finite level, they impinge upon the Supreme, who is the Deity focalization and cosmic summation of the finite qualifications of the natures of the Absolute Actual and the Absolute Potential.

115:7.5 (1266.6) The Paradise Trinity is considered to be the absolute inevitability;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apparently Trinity inevitabilities; the power-mind-spirit-personalit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must be the evolutionary inevitability.

115:7.6 (1266.7) God the Suprem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inevitable in unqualified infinity, but he seems to be on all relativity levels. He is the indispensable focalizer, summarizer, and encompasser of evolutionary experience, effectively unifying the results of this mode of reality perception in his Deity nature. And all this he appears to do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appearance of the *inevitable eventuation*, the superexperience and superfinite manifestation of God the Ultimate.

115:7.7 (1267.1) The Supreme Being cannot be fully appreciat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source, function, and destiny: relationship to the originating Trinity, the universe of activity, and the Trinity Ultimate of immediate destiny.

115:7.8 (1267.2) By the process of summing evolutionary experience the Supreme connects the finite with the absonite, even as the mind of the Conjoint Actor integrates the divine spirituality of the personal Son with the immutable energies of the Paradise pattern, and as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unifies Deity activation with the Unqualified reactivity. And this unity must be a revelation of the undetected working of the original unity of the First Father-Cause and Source-Pattern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유란시아에 잠시 머문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115:7.9 (1267.3)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 116 편 전능 최극자

⇨ 115

유랜시아 책

117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6 편 전능 최극자

섹션

소개

제 1 장. 최극 마음

제 2 장. 전능자와 칠중 하느님

제 3 장. 전능자와 파라다이스 신(神)

제 4 장. 전능자와 최극 창조자

제 5 장. 전능자와 칠중 통제자

제 6 장. 영의 통치

제 7 장. 대우주의 살아있는 유기체

PAPER 116

THE ALMIGHTY SUPREM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upreme Mind

2. The Almighty and God the Sevenfold

3. The Almighty and Paradise Deity

4. The Almighty and the Supreme Creators

5. The Almighty and the Sevenfold

Controllers

6. Spirit Dominance

7. The Living Organism of the Grand

Universe

소개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들—자신의 직속 감독자들—을 인지했다면, 한편으로는 신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한하였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하느님이 진화하고 있는 그리고 비(非)절대적인 신(神)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현세적인 불평등의 모순들이 심오한 종교적 역설들로 되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종교적 신앙이 더 이상 행복한 자들에서의 사회적 자기만족의 장려에, 한편으로는 오직 사회적 박탈을 당한 불행한 피해자의 금욕주의적 체념에 용기를 북돋우는 봉사에, 천하게 몸을 팔수는 없을 것이다.

하보나의 절묘하게 완전한 구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완전하고 무한하며 그리고 절대적인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이유도 있고 동시에 논리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와 논리가 모든 정직한 존재들로 하여금, 유랜시아의 혼란과 결함 그리고 불공평을 바라볼 때에, 너희 세계가 하위-절대, 무한-이전 그리고 완전함이 아니었던 창조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관리되어 왔다고 결론내리도록 강요할 것이다.

체험적 성장은 창조체-창조자 동반자관계—

INTRODUCTION

116:0.1 (1268.1) IF MAN recognized that his Creators — his immediate supervisors — while being divine were also finite, and that the God of time and space was an evolving and nonabsolute Deity, then would the inconsistencies of temporal inequalities cease to be profound religious paradoxes. No longer would religious faith be prostituted to the promotion of social smugness in the fortunate while serving only to encourage stoical resignation in the unfortunate victims of social deprivation.

116:0.2 (1268.2) When viewing the exquisitely perfect spheres of Havona, it is both reasonable and logical to believe they were made by a perfect, infinite, and absolute Creator. But that same reason and logic would compel any honest being, when viewing the turmoil, imperfections, and inequities of Urantia, to conclude that your world had been made by, and was being managed by, Creators who were subabsolute, preinfinite, and other than perfect.

116:0.3 (1268.3) Experiential growth implies creature-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적-연합—를 암시한다. 성장은 체험적 신(神)의 특징이다. 하보나는 성장하지 않았다; 하보나는 지금 그대로이고 항상 그대로였다; 그 근원이신 영속하는 하느님들처럼 그곳은 실존적이다. 그러나 성장은 대우주를 특징짓는다.

전능 최극자는 힘과 개인성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신(神)이다. 그의 현재 권역, 대우주 역시 힘과 개인성의 성장하는 영역이다. 그의 운명은 완전이다, 그러나 그의 현재 체험은 성장의 요소들과 미완성 지위를 감싸 안고 있다.

최극존재는 1차적으로 중앙우주에서 영 개인성으로 기능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대우주에서 힘의 개인성. 전능 하느님으로 기능한다. 주(主)우주에서 최극자의 제3의 기능은 현재 잠재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마음 잠재로만 오직 존재한다. 최극존재의 이 세 번째 발달이 무엇을 나타낼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최극자가 외부 우주들의 초(超)전능으로서 힘을 확대하면서 대우주의 전능적 그리고 체험적 주권자로서 유버사로부터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최극위의 세 번째 단계가 신(神) 현시활동의 세 번째 차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구도 실제로 모른다.

제 1 장. 최극 마음

진화하는 각각의 창조체 개인성의 체험은 전능 최극자의 체험의 한 위상이다. 초우주들의 각각의 물질적 부분에 대한 지능적 정복은 전능 최극자의 확장되는 통제의 일부분이다. 힘과 개인성의 창조적 합성은 최극 마음의 창조적 충동의 일부분이며 최극존재 안에서의 합일의 진화적 성장의 바로 그 본질이다.

최극위의 힘과 개인성 속성의 연합은 최극 마음의 기능이다; 전능 최극자의 완벽한 진화는—신성한 속성들의 어떤 느슨하게 조화-협동된 관계적-연합에서가 아닌—하나로 통합되고 개인적인 신(神)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 넓은 견지에서, 최극자와 거리가 먼 전능, 전능자와 거리가 먼 최극위는 없을 것이다.

진화 시대에 두루, 최극자의 물리적인 힘의 잠재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 잠재는 일곱 주(主) 영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무한 마음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다; 조화우주 마음, 일곱 주(主) 영들의 사명활동; 최극 마음은 대우주의 조화-협동에서 그리고 철중

Creator partnership — God and man in association. Growth is the earmark of experiential Deity: Havona did not grow; Havona is and always has been; it is existential like the everlasting Gods who are its source. But growth characterizes the grand universe.

116:0.4 (1268.4) The Almighty Supreme is a living and evolving Deity of power and personality. His present domain, the grand universe, is also a growing realm of power and personality. His destiny is perfection, but his present experience encompasses the elements of growth and incomplete status.

116:0.5 (1268.5) The Supreme Being functions primarily in the central universe as a spirit personality; secondarily in the grand universe as God the Almighty, a personality of power. The tertiary function of the Supreme in the master universe is now latent, existing only as an unknown mind potential. No one knows just what this third development of the Supreme Being will disclose. Some believe that, when the superuniverses ar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Supreme will become functional from Uversa as the almighty and experiential sovereign of the grand universe while expanding in power as the supernalmighty of the outer universes. Others speculate that the third stage of Supremacy will involve the third level of Deity manifestation. But none of us really know.

1. THE SUPREME MIND

116:1.1 (1268.6) The experience of every evolving creature personality is a phase of the experience of the Almighty Supreme. The intelligent subjugation of every physical segment of the superuniverses is a part of the growing control of the Almighty Supreme. The creative synthesis of power and personality is a part of the creative urge of the Supreme Mind and is the very essence of the evolutionary growth of unity in the Supreme Being.

116:1.2 (1269.1) The union of the power and personality attributes of Supremacy is the function of Supreme Mind; and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Almighty Supreme will result in one unified and personal Deity — not in any loosely co-ordinated association of divine attributes.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there will be no Almighty apart from the Supreme, no Supreme apart from the Almighty.

116:1.3 (1269.2) Throughout the evolutionary ages the physical power potential of the Supreme is vested in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and the mind potential reposes in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Infinite Mind is the function of the Infinite Spirit; the cosmic mind, the ministry of the

하느님의 계시와 달성의 기능적 관계적-연합에서 실재화하는 과정에 있다.

시간-공간 마음, 조화우주 마음은 일곱 초우주들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하지만, 최극존재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연관적인 기법에 의해 조화-협동을 이룬다. 대우주에 대한 전능자 전반적-통제가 순전히 물리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일곱 초우주들에서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영적이지만, 지적인 동시에 영적인 최극자의 현상들도 또한 있다.

이 진화하는 신(神)의 어떤 다른 측면들보다도 최극위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우주에 두루 분명히 활동적이며, 광대한 범위에 속하는 주(主)우주 기능의 잠재적 운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다: 외형이 완벽한 성장에 도달하는 것에 반하여, 그리고 영이 완전한 발달을 성취하는 것에 반하여, 마음은 진보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그것은 끝남이 없는 진보의 체험적 기법이다. 최극자는 체험적 신(神)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달성의 완성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제 2 장. 전능자와 칠중 하느님

전능자의 우주적 힘 현존의 나타남은 진화적인 초우주들의 높으신 창조자들과 통제자들의 조화우주 행동 단계에서의 나타남과 동시에 일어난다.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로부터 자신의 영과 개인성이 기인한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는 창조자 아들들, 옛적으로 늘 계신 이 그리고 주(主) 영들의 행위들 안에서 힘을 실재화하며, 그들의 집단적인 행위들이 일곱 초우주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전능한 주권으로서 그의 확장하는 힘의 근원이다.

분별불가 파라다이스 신(神)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창조체들에게 이해될 수 없다. 영원과 무한성은 시간-공간 창조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신(神) 실체의 차원을 암시한다. 신(神)의 무한성과 주권의 절대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속에 고유하며, 삼위일체는 필사 사람의 납득을 넘어서는 하나의 실체이다. 시간-공간 창조체들은 우주적 관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성의 의미하는 가치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기원들, 상대성들 그리고 운명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신(神)이 감쇄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의 가외-파라다이스 개인성구현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해서 최극 창조자들과 그

Seven Master Spirits; the Supreme Mind is in process of actualizing in the co-ordination of the grand universe and in functional association with the revelation and attainment of God the Sevenfold.

116:1.4 (1269.3) The time-space mind, the cosmic mind, is differently functioning in the seven superuniverses, but it is co-ordinated by some unknown associative technique in the Supreme Being. The Almighty overcontrol of the grand universe is not exclusively physical and spiritual. In the seven superuniverses it is primarily material and spiritual, but there are also present phenomena of the Supreme which are both intellectual and spiritual.

116:1.5 (1269.4) We really know less about the mind of Supremacy than about any other aspect of this evolving Deity. It is unquestionably active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and is believed to have a potential destiny of master universe function which is of vast extent. But this we do know: Whereas physique may attain completed growth, and whereas spirit may achieve perfection of development, mind never ceases to progress — it is the experiential technique of endless progress. The Supreme is an experiential Deity and therefore never achieves completion of mind attainment.

2. THE ALMIGHTY AND GOD THE SEVENFOLD

116:2.1 (1269.5) The appearance of the universe power presence of the Almighty is concomitant with the appearance on the stage of cosmic action of the high creators and controllers of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116:2.2 (1269.6) God the Supreme derives his spirit and personality attributes from the Paradise Trinity, but he is power-actualizing in the doings of the Creator Sons, the Ancients of Days, and the Master Spirits, whose collective acts are the source of his growing power as almighty sovereign to an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116:2.3 (1269.7) Unqualified Paradise Deity is incomprehensible to the evolving creatures of time and space. Eternity and infinity connote a level of deity reality which time-space creatures cannot comprehend. Infinity of deity and absoluteness of sovereignty are inherent in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Trinity is a reality which lies somewhat beyond the understanding of mortal man. Time-space creatures must have origins, relativities, and destinies in order to grasp universe relationship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values of divinity. Therefore does Paradise Deity attenuate and otherwise qualify the extra-Paradise

들의 연관-동료들의 실존이 초래하고, 그들은 생명의 빛이 최고로 먼 곳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표현이 진화 세계위에서 증여 아들들의 지상(地上) 삶 안에서 발견할 때까지 그 생명의 빛을 파라다이스 근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언제까지나 실어 나른다.

그리고 이것이 칠중 하느님의 기원이다, 그의 연속적인 차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사 사람이 만나게 된다:

1. 창조자 아들들 (그리고 창조 영들)
2. 옛적으로 늘 계신이
3. 일곱 주(主) 영
4. 최극존재.
5. 공동 행위자.
6. 영원한 아들.
7. 우주 아버지.

처음 세 차원은 최극 창조자들이며, 마지막 세 차원은 파라다이스 신(神)들이다. 최극자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체험적 영 개인성구현으로서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창조자 자녀들의 진화적인 전능 힘의 체험적 초점으로 언제나 개입한다. 최극존재는 일곱 초우주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우주 시대를 위한 신(神)의 최대 계시이다.

필사 논리의 기법으로,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의 집합적인 행위들에 대한 체험적 재-동일이 파라다이스 신(神)의 차원과 동등하리라는 것이 추론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 신(神)은 실존적 신(神)이다. 그들의 힘과 개인성의 신성한 합일 안에서, 최극 창조자들은 체험적 신(神)의 새로운 힘 잠재의 구성과 표현이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기원이 되는 이 힘 잠재는—최극존재—삼위일체 기원의 체험적 신(神)과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연합을 발견한다.

최극자 하느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기능적 활동들이 그의 진화하는 전능의 힘을 실제적으로 통합하는 그 초우주 창조자들 전체이거나 또는 어느 하나가 아니다. 최극자 하느님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반면, 오직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의 조화-협동된 기능들을 통해서만 힘의 개인성으로서 진화 창조체들에게 현시할 수 있게 된다. 전능 최극자는 현재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활동들을 통하여 시간-공간에서 사실화 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영원 안에서 공동 행위자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존재로 번쩍 생겨나는 것과 같다. 칠중 하느님의 처음 세 차원들의 이 존재들은 전능 최극자가 가진 힘의 바로 그 본성이자 근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행정-관리적인 행동들을 향

personalizations of divinity, thus bringing into existence the Supreme Creators and their associates, who ever carry the light of life farther and farther from its Paradise source until it finds its most distant and beautiful expression in the earth lives of the bestowal Sons on the evolutionary worlds.

116:2.4 (1270.1) And this is the origin of God the Sevenfold, whose successive levels are encountered by mortal man in the following order:

116:2.5 (1270.2) 1. The Creator Sons (and Creative Spirits).

116:2.6 (1270.3) 2. The Ancients of Days.

116:2.7 (1270.4) 3. The Seven Master Spirits.

116:2.8 (1270.5) 4. The Supreme Being.

116:2.9 (1270.6) 5. The Conjoint Actor.

116:2.10 (1270.7) 6. The Eternal Son.

116:2.11 (1270.8) 7. The Universal Father.

116:2.12 (1270.9) The first three levels are the Supreme Creators; the last three levels are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ever intervenes as the experiential spirit personalization of the Paradise Trinity and as the experiential focus of the evolutionary almighty power of the creator children of the Paradise Deities. The Supreme Being is the maximum revelation of Deity to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for the present universe age.

116:2.13 (1270.10) By the technique of mortal logic it might be inferred that the experiential reunification of the collective act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would equvalate to the level of Paradise Deity, but such is not the case. Paradise Deity is *existential* Deity. The Supreme Creators, in their divine unity of power and personality, are constitutive and expressive of a new power potential of *experiential* Deity. And this power potential of experiential origin finds inevitable and inescapable union with the experiential Deity of Trinity origin — the Supreme Being.

116:2.14 (1270.11) God the Supreme is not the Paradise Trinity, neither is he any one or all of those superuniverse Creators whose functional activities actually synthesize his evolving almighty power. God the Supreme, while of origin in the Trinity, becomes manifest to evolutionary creatures as a personality of power only through the co-ordinated function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The Almighty Supreme is now factualizing in time and space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even as in eternity the Conjoint Actor flashed into being by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These beings of the first three levels of God the Sevenfold are the very nature and

상 동반하고 유지한다.

source of the power of the Almighty Supreme; therefore must they ever accompany and sustain his administrative acts.

제 3 장. 전능자와 파라다이스 신(神)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대우주에 두루 그들의 중력 순환회로 속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그들의 다양한 대리자들과 다른 현시활동들을 통하여서도 기능한다:

1.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 초점화구현. 에너지와 영의 유한한 영역들은 공동 행위자의 마음 현존에 의해 정말로 서로 묶여 있다. 이것은 지역 우주의 창조 영으로부터 초우주의 반영 영들을 거쳐서 대우주의 주(主) 영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지능 초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마음 순환회로들은 창조체 선택의 조화우주의 경계장을 나타낸다. 마음은 창조체들과 창조자들이 매우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유연한 실체이다; 이것은 물질과 영을 연결하는 생명의 고리이다. 셋째 근원이며 중심의 마음 중여가 최극자 하느님의 영 개인을 진화적 전능자의 체험적 힘과 통합한다.

2.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 계시. 공동 행위자의 마음 현존들이 신성의 영을 에너지의 원형들과 통합한다. 영원한 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중여 육신화들이 창조자의 신성한 본성을 창조체의 진화적 본성과 통합, 실제로 융합한다. 최극자는 창조체인 동시에 창조자이다; 그의 존재의 가능성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조화-협동자이며 종속적인 아들들의 중여 행위들 속에서 그렇게 계시된다. 아들관계의 중여 계층들, 미가엘들과 아보날들은 진화 세계에서 실제의 창조체 삶을 살아감에 따라 그들의 것이 되는 진실한 창조체 본성으로서 그들의 신성한 본성들을 실제적으로 증강시킨다. 신성(神性)이 인간성과 비슷하게 될 때, 인간성이 신성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이 관계 속에 본질적으로 들어 있다.

3.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내주하는 현존. 마음은 영 원인성과 에너지 반응을 통합한다; 중여 생명활동은 신성 하강과 창조체 상승을 통합한다; 우주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들은 진화하는 창조체들을 파라다이스의 하느님과 실제적으로 통합한다. 수많은 계층의 개인성에 내주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많은 현존들이 있으며 그리고 필사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신성한 단편들은 생각 조절자들이다. 신비 감시자들이 인간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최극존재에 대한 것과 같다. 조절자들은 절대적 토대이며, 그리고 절대적 토대 위에서 자유의지의 선택은 영원자 본성, 사람의 경우에서 최중자 본성, 최극자 하느님에서 신(神) 본성의 신성한 실체를 진화하

3. THE ALMIGHTY AND PARADISE DEITY

116:3.1 (1270.12) The Paradise Deities not only act directly in their gravity circuits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but they also function through their various agencies and other manifestations, such as:

116:3.2 (1270.13) 1. *The mind focalization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finite domains of energy and spirit are literally held together by the mind presences of the Conjoint Actor. This is true from the Creative Spirit in a local universe through the Reflective Spirits of a superuniverse to the Master Spirits in the grand universe. The mind circuits emanating from these varied intelligence focuses represent the cosmic arena of creature choice. Mind is the flexible reality which creatures and Creators can so readily manipulate; it is the vital link connecting matter and spirit. The mind bestowal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unifies the spirit person of God the Supreme with the experiential power of the evolutionary Almighty.

116:3.3 (1271.1) 2. *The personality revelations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mind presences of the Conjoint Actor unify the spirit of divinity with the pattern of energy. The bestowal incarnations of the Eternal Son and his Paradise Sons unify, actually fuse, the divine nature of a Creator with the evolving nature of a creature. The Supreme is both creature and creator; the possibility of his being such is revealed in the bestowal actions of the Eternal Son and his co-ordinate and subordinate Sons. The bestowal orders of sonship, the Michaels and the Avonals, actually augment their divine natures with bona fide creature natures which have become theirs by the living of the actual creature life on the evolutionary worlds. When divinity becomes like humanity, inherent in this relationship is the possibility that humanity can become divine.

116:3.4 (1271.2) 3. *The indwelling presenc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Mind unifies spirit causations with energy reactions; bestowal ministry unifies divinity descensions with creature ascensions; and the indwelling fragments of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unify the evolving creatures with God on Paradise. There are many such presences of the Father which indwell numerous orders of personalities, and in mortal man these divine fragments of God are the Thought Adjusters. The Mystery Monitors are to human beings what the Paradise Trinity is to the Supreme Being. The Adjusters are absolute foundations, and upon absolute foundations freewill choice can cause to be evolved the divine

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들관계의 파라다이스 계층들의 창조체 증여는 신성한 이 아들들로 하여금 우주 창조체들의 실제적 본성의 획득에 의해 그들의 개인성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증여들은 신성 달성의 파라다이스 통로를 창조체 자신들에게 반드시 제시한다.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증여는 그에게 의지적인 창조체들의 개인성들을 그 자신에게로 끌어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유한한 우주에서의 모든 이들 관계에 두루, 공동 행위자는 이들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사명활동의 언제나-현재 근원이다.

이것들과 다른 많은 방법들로 파라다이스 신(神)들은 그들이 공간의 순환하는 행성들에서 전개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진화의 최극 개인성 결과에서의 창발 안에서 그들이 정점에 오르는 것처럼 그에 따라, 그렇게 시간의 진화 속에 참여한다.

제 4 장. 전능자와 최극 창조자

최극 총체자의 합일은 유한한 부분들의 진보적 통일에 의존한다; 최극자의 실재화구현은 최극 위 요소들—우주들의 창조자들, 창조체들, 지능체들, 그리고 에너지들—의 바로 이 통일의 결과이고 그 산물이다.

최극위의 주권이 그것의 시간 발전을 겪는 그러한 시기 동안, 한편으로는 그의 시원적 개인성과 함께하는 공동 행위자, 일곱 주(主) 영들과 최극존재가 각별히 가까운 관계로 보이지만, 최극자의 전능 힘은 칠중 하느님의 신성 행동들에 의존한다. 공동 행위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진화적 신(神)의 미완성을 보완하는 많은 방법들로서 기능하며 최극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들을 유지한다. 이 관계의 긴밀성은 모든 주(主) 영들에 의해 어느 정도 공유되지만 특별히 최극자를 대변하는 제7번 주(主) 영에 의해 그러하다. 이 주(主) 영은 최극자를 안다.—그와 개인적인 접촉으로 있다.

창조의 초우주 기획의 구체적 투사 활동에서 초기에, 주(主) 영들은, 49명의 반영 영들을 공동(共同) 창조하는 것에서 조상이 되는 삼위일체와 같이 합쳤고, 동시에 최극존재는 파라다이스 신(神)의 창조하는 자녀들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동행위의 정점을 이루는 자로서 창조적으로 기능하였다. 장엄자가 나타났고 그 후로 항상 최극마음의 조화우주 현존을 초점화구현 시켰으며, 한

reality of an eternaliter nature, finaliter nature in the case of man, Deity nature in God the Supreme.

116:3.5 (1271.3) The creature bestowals of the Paradise orders of sonship enable these divine Sons to enrich their personalities by the acquisition of the actual nature of universe creatures, while such bestowals unfailingly reveal to the creatures themselves the Paradise path of divinity attainment. The Adjuster bestowals of the Universal Father enable him to draw the personalities of the volitional will creatures to himself. And throughout all these relationships in the finite universes the Conjoint Actor is the ever-present source of the mind ministry by virtue of which these activities take place.

116:3.6 (1271.4) In these and many other ways do the Paradise Deities participate in the evolutions of time as they unfold on the circling planets of space, and as they culminate in the emergence of the Supreme personality consequence of all evolution.

4. THE ALMIGHTY AND THE SUPREME CREATORS

116:4.1 (1271.5) The unity of the Supreme Whole is dependent on the progressive unification of the finite parts;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is resultant from, and productive of, these very unifications of the factors of supremacy — the creators, creatures, intelligences, and energies of the universes.

116:4.2 (1272.1) During those ages in which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is undergoing its time development,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is dependent on the divinity acts of God the Sevenfold, while there seems to be a particular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Being and the Conjoint Actor together with his primary personalities,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Infinite Spirit as the Conjoint Actor functions in many ways which compensate the incompleteness of evolutionary Deity and sustains very close relations to the Supreme. This closeness of relationship is shared in measure by all of the Master Spirits but especially by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speaks for the Supreme. This Master Spirit knows — is in personal contact with — the Supreme.

116:4.3 (1272.2) Early in the projection of the superuniverse scheme of creation, the Master Spirits joined with the ancestral Trinity in the cocreation of the forty-nine Reflective Spirits, and concomitantly the Supreme Being functioned creatively as the culminator of the conjoined acts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creative children of Paradise Deity. Majeston appeared and ever since

편으로 주(主) 영들은 조화우주 마음의 멀리 퍼지는 사명활동을 위한 근원-중심들로서 존속한다.

그러나 주(主) 영들은 반영 영들의 감독을 지속한다. 7번째 주(主) 영은 (중앙우주에서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감독에서) 유버사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과 (전반적-통제하면서) 개인적인 접촉에 있다. 그의 초우주-상호 그리고 초우주-내부 통제와 관리-행정에서 그는 각각의 초우주 수도에 위치한 그의 고유 유형인 반영 영들과 반영적 접촉을 이룬다.

이 주(主) 영들은 최극위 주권의 지지자들과 증강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최극자의 창조적 목적들에 의해 반대로 영향을 받는다. 대개, 주(主) 영들의 집합적인 창조계들은 유사-물질 계층(힘 지도자들 등등)으로 되어있고 반면, 그들의 개별적 창조계들은 영적 계층(초(超)천사 등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주(主) 영들이 최극존재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일곱 순환회로 영들을 집합적으로 산출하였을 때, 이 창조 활동의 산물은 물질적이거나 유사-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초우주들의 주(主) 영들과 함께 인 것처럼, 그것은 이 초(超)창조계에 대한 삼원적 통치자들—옛적으로 늘 계신이—과 함께 있다. 시간-공간에서의 삼위일체 공의-심판의 이들 개인화구현들은 최극자의 전능한 힘을 동원하기 위한 현장 지레받침들이며, 그것들은 시간-공간의 권역에서 삼위일체로서의 주권의 진화를 위한 칠중 초점으로 봉사한다. 파라다이스와 진화하는 세계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유리한 중간 지점에서, 이들 삼위일체-기원 주권자들은 양 쪽 길을 다 보고, 두 길을 다 알며, 두 길을 조화-협동시킨다.

그러나 지역우주들은, 조화우주적으로 합산될 때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최극자의 체험에 따라 그리고 체험 안에서 신(神) 진화가 성취하고 있는 실제적 기초를 구성하는, 그곳에서 마음 실험, 은하 탐험, 신성 전개, 그리고 개인성 진보가 수행되고 있는, 실제 실험실이다.

지역우주들에서 창조자들도 진화한다; 공동 행위자의 현존은 살아있는 힘 초점으로부터 우주 어머니 영의 신성한 개인성의 지위로 진화한다; 창조자 아들은 실존적 파라다이스 신성의 본성으로부터 최극 주권의 체험적 본성으로 진화한다. 지역우주들은 참된 진화의 출발점들, 그들이 있게 되는 그대로 그들 자신들의 공동 창조자들이 되어가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자질로서 부여된 신의의 불완전 개인성들의 산란 장소들이다.

has focalized the cosmic presence of the Supreme Mind, while the Master Spirits continue as source-centers for the far-flung ministry of the cosmic mind.

116:4.4 (1272.3) But the Master Spirits continue in supervision of the Reflective Spirits. The Seventh Master Spirit is (in his overall supervision of Orvonton from the central universe) in personal contact with (and has overcontrol of)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located on Uversa. In his inter- and intrasuperuniverse controls and administrations he is in reflective contact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his own type located on each superuniverse capital.

116:4.5 (1272.4) These Master Spirits are not only the supporters and augmenters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but they are in turn affected by the creative purposes of the Supreme. Ordinarily, the collective creations of the Master Spirits are of the quasi-material order (power directors, etc.), while their individual creations are of the spiritual order (supernaphim, etc.). But when the Master Spirits collectively produced the Seven Circuit Spirits in response to the will and purpose of the Supreme Being, it is to be noted that the offspring of this creative act are spiritual, not material or quasi-material.

116:4.6 (1272.5) And as it is with the Master Spirits of the superuniverses, so is it with the triune rulers of these supercreations — the Ancients of Days. These personifications of Trinity justice-judgment in time and space are the field fulcrums for the mobilizing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serving as the sevenfold focal points for the evolution of trinitarian sovereignty in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From their vantage point midway between Paradise and the evolving worlds, these Trinity-origin sovereigns see both ways, know both ways, and co-ordinate both ways.

116:4.7 (1272.6) But the local universes are the real laboratories in which are worked out the mind experiments, galactic adventures, divinity unfoldings, and personality progressions which, when cosmically totaled, constitute the actual foundation upon which the Supreme is achieving deity evolution in and by experience.

116:4.8 (1272.7) In the local universes even the Creators evolve: The presence of the Conjoint Actor evolves from a living power focus to the status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a Universe Mother Spirit; the Creator Son evolves from the nature of existential Paradise divinity to the experiential nature of supreme sovereignty. The local universes are the starting points of true evolution, the spawning grounds of bona fide imperfect personalities endowed with the freewill choice of becoming cocreators of themselves as they are to be.

진화하는 세계들에 자신을 증여하면서 치안 법관 아들들은, 물질 인간 본성의 가장 높은 영적 가치들과의 체험적 통일에서, 파라다이스 신성이 나타내어지는 본성들을 결국에는 획득한다. 그리고 이들과 그리고 다른 증여들을 통하여 미가엘 창조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제적인 지역우주 자녀들의 본성들과 조화우주 관점들을 획득한다. 그러한 주(主) 창조자 아들들은 하위-최극 체험의 완성에 근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우주 주권이 연관된 창조 영들을 포용할 정도로 확대될 때, 진화적 대우주의 현재 잠재들 안에서 최극위의 한계에 근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된 아들이 사람에게 하느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들을 제시할 때, 그들은 신성 달성의 이 길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극자의 현존을 통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성에게로 인도하는 진보의 영속하는 고속도로들을 밝혀준다.

지역우주는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큰 영적 상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공동창조에의 체험적 참여의 최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개인성들을 위한 출발지점들이다. 바로 그 지역우주들은, 그곳에서 진화 창조체가 파라다이스 상승자에 대하여 가지는 깊은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강하는 개인성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체험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실재화하는 최극자에서 이 신성 집단화가 정점을 이루는 데 따라서 필사 사람이 칠중 하느님의 충분한 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극자의 전능한 힘의 진화에 똑같이 필요한 우주적 개인성들의 다른 계층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인간 존재들의 교화를 위하여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필사 사람에게 관련되는 칠중 하느님의 진화에서 작용하는 그 요소들에게만 주로 한정된다.

제 5 장. 전능자와 칠중 통제자

너희는 지금까지 최극존재에 대한 칠중 하느님의 관계를 배워왔으며, 너희는 이제 칠중 하느님이 통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우주의 창조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우주의 이 칠중 통제자들은 다음의 존재들을 포용한다:

1. 주(主)물리통제자들.
2. 최극 힘 중심들.

116:4.9 (1273.1) The Magisterial Sons in their bestowals upon the evolutionary worlds eventually acquire natures expressive of Paradise divinity in experiential unification with the highest spiritual values of material human nature. And through these and other bestowals the Michael Creators likewise acquire the natures and cosmic viewpoints of their actual local universe children. Such Master Creator Sons approximate the completion of sub-supreme experience; and when their local universe sovereignty is enlarged to embrace the associated Creative Spirits, it may be said to approximate the limits of supremacy within the present potentials of the evolutionary grand universe.

116:4.10 (1273.2) When the bestowal Sons reveal new ways for man to find God, they are not creating these paths of divinity attainment; rather are they illuminating the everlasting highways of progression which lea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Supreme to the person of the Paradise Father.

116:4.11 (1273.3) The local universe is the starting place for those personalities who are farthest from God, and who can therefore experience the greatest degree of spiritual ascent in the universe, can achieve the maximum of experiential participation in the cocreation of themselves. These same local universes likewise provide the greatest possible depth of experience for the descending personalities, who thereby achieve something which is to them just as meaningful as the Paradise ascent is to an evolving creature.

116:4.12 (1273.4) Mortal man appears to be necessary to the full function of God the Sevenfold as this divinity grouping culminates in the actualizing Supreme. There are many ot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who are equally necessary to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but this portrayal is presented for the edification of human beings, hence is largely limited to those factors operating in the evolution of God the Sevenfold which are related to mortal man.

5. THE ALMIGHTY AND THE SEVENFOLD CONTROLLERS

116:5.1 (1273.5) You have been instructed in the relationship of God the Sevenfold to the Supreme Being, and you should now recognize that the Sevenfold encompasses the controllers as well as the creators of the grand universe. These sevenfold 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embrace the following:

116:5.2 (1273.6) 1. The Master Physical Controllers.

116:5.3 (1273.7) 2. The Supreme Power Centers.

116:5.4 (1273.8)

3. 최극 힘 지도자들.

4. 전능 최극자.

5. 행동의 하느님—무한한 영.

6. 파라다이스 섬.

7. 파라다이스의 근원—우주 아버지.

이 일곱 집단들은 칠중 하느님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신(神) 관계적-연합의 물리적-통제 차원을 구성한다.

에너지와 영의 분기점(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 섬의 공동 현존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는)은 일곱 주(主) 영들이 그들의 집합적 창조의 첫 번째 행동에 연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초우주 감각으로 상징화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의 나타남을 증거 했다. 그것과 동시에 주(主) 영들의 영적 순환회로들은 힘 지도자 감독의 물리적 행동들로부터 대조적으로 구별되었으며, 조화 우주 마음은 물질과 영을 조화-협동시키는 새로운 요소로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전능 최극자는 대우주의 물리적 힘의 전반적-통제자로서 진화하고 있다. 현재 우주 시대에서 이 물리적 힘의 잠재는 일곱 최극 힘 지도자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힘 중심지들의 고정된 장소들을 통하여 그리고 물리통제자들의 활동적 현존을 통하여 활동한다.

시간의 우주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완전을 향한 투쟁은 지적 그리고 영적 차원들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질량의 물리적 차원과도 관계된다. 일곱 초우주들의 빛과 생명 속에 정착은 그들이 물리적 안정을 달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질적 평형의 최종 달성이 전능자의 물리적 통제의 완벽한 진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우주 설립의 초기에는 파라다이스 창조자들도 시원적으로 물질적 평형에 관여한다. 지역우주의 원형들은 힘 중심들의 활동의 결과로써 뿐만 아니라 창조 영의 공간 현존 때문에 모양을 갖는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 설립 초기 신(新)시대에 두루, 창조자 아들은 물질적 통제에 대해 거의 납득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내며, 그는 그 지역우주의 전체적 평형이 확립될 때까지 자신의 수도 행성을 떠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마음에 반응하며, 물리통제자들은 파라다이스 원형들의 활

116:5.4 (1273.8) 3. The Supreme Power Directors.

116:5.5 (1273.9) 4. The Almighty Supreme.

116:5.6 (1273.10) 5. The God of Action — the Infinite Spirit.

116:5.7 (1273.11) 6. The Isle of Paradise.

116:5.8 (1273.12) 7. The Source of Paradise — the Universal Father.

116:5.9 (1273.13) These seven groups are functionally inseparable from God the Sevenfold and constitute the physical-control level of this Deity association.

116:5.10 (1273.14) The bifurcation of energy and spirit (stemming from the conjoin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Paradise Isle) was symbolized in the superuniverse sense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unitedly engaged in their first act of collective creation. This episode witnessed the appearance of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Concomitant therewith the spiritual circuits of the Master Spirits contrastively differentiated from the physical activities of power director supervision, and immediately did the cosmic mind appear as a new factor co-ordinating matter and spirit.

116:5.11 (1274.1) The Almighty Supreme is evolving as the overcontroller of the physical power of the grand univers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is potential of physical power appears to be centered in the Seven Supreme Power Directors, who operate through the fixed locations of the power centers and through the mobile presences of the physical controllers.

116:5.12 (1274.2) The time universes are not perfect; that is their destiny. The struggle for perfection pertains not only to the intellectual and the spiritual levels but also to the physical level of energy and mass. The settlement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n light and life presupposes their attainment of physical stability. And it is conjectured that the final attainment of material equilibrium will signify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physical control of the Almighty.

116:5.13 (1274.3) In the early days of universe building even the Paradise Creator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material equilibrium. The pattern of a local universe takes shape not only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of the power centers but also because of the space presence of the Creative Spirit. And throughout these early epochs of local universe building the Creator Son exhibits a little-understood attribute of material control, and he does not leave his capital planet until the gross equilibrium of the local universe has been established.

116:5.14 (1274.4) In the final analysis, all energy responds to mind, and the physical controllers are

성자인 마음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힘 지도자들의 지능은 물리적 통제를 이룩하는 임무에 끊임없이 헌신되어 있다. 에너지의 관계들과 질량의 행동들에 대한 물리적 통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그들이 그들의 영존하는 활동권역을 구성하는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한정된 승리를 성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의 영 투쟁들은 (개인적) 마음의 중재에 의해서 물질에 대한 영(靈) 통치의 진화로써 해야만 된다; 우주들의 물리적 (비(非)개인적) 진화는 영의 전반적-통제에 종속하는 마음의 평형 개념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화우주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야만 한다. 대우주 전체의 모든 진화는 영에 조화-협동된 지능과 에너지-통제하는 마음의 개인성 통일의 문제이며, 그리고 최극자의 전능한 힘의 충분한 출현으로 제시될 것이다.

역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어려움은 성장하는 조화우주라는 사실성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물리적 창조의 확립된 순환회로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질량의 나타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있다. 성장하는 우주는 안정되지 않은 우주이다; 따라서 전체 조화우주의 어떤 부분도 시간의 충분함이 일곱 초우주들의 물질적 완벽함을 증명하기까지는 실제적인 안정을 발견할 수 없다.

빛과 생명의 안정된 우주들에서 예기치 못한 주된 중요성의 물리적 사건들은 없다. 물리적 창조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벽한 통제가 성취되었다; 진화 우주들과 안정된 우주들이 가지는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주 힘 지도자들의 솜씨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대우주가 진화적 표현의 정점에 다다름에 따라 새로운 창조 활동의 감소와 함께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제 6 장. 영의 통치

진화적인 초우주들에서 개인성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물질이 지배적이다, 그곳에서 영은 승리를 위하여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투쟁하고 있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표는 마음에 의한 에너지-물질의 정복, 마음과 영의 조화-협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인성의 창조적이고 통합하는 현존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성에 대하여, 물리적 체계들은 종속적이 되게 하고; 마음 체계들은 조화-협동이 되게 하고; 영 체계들은 지배적이 되게 한다.

힘과 개인성의 이 연합은 최극자로서 그리고 최극자 안에서 신(神) 차원들 위에 표현된다. 그러나 영 통치의 실제적인 진화는 대우주의 창조자들

the children of the mind God, who is the activator of Paradise pattern. The intelligence of the power directors is unremittingly devoted to the task of bringing about material control. Their struggle for physical dominance over the relationships of energy and the motions of mass never ceases until they achieve finite victory over the energies and masses which constitute their perpetual domains of activity.

116:5.15 (1274.5) The spirit struggles of time and space have to do with the evolution of spirit dominance over matter by the mediation of (personal) mind; the physical (nonpersonal) evolution of the universes has to do with bringing cosmic energy into harmony with the equilibrium concepts of mind subject to the overcontrol of spirit. The total evolution of the entire grand universe is a matter of the personality unification of the energy-controlling mind with the spirit-co-ordinated intellect and will be revealed in the full appearance of the almighty power of the Supreme.

116:5.16 (1274.6) The difficulty in arriving at a state of dynamic equilibrium is inherent in the fact of the growing cosmos. The established circuits of physical creation are being continually jeopardized by the appearance of new energy and new mass. A growing universe is an unsettled universe; hence no part of the cosmic whole can find real stability until the fullness of time witnesses the material comple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116:5.17 (1274.7) In the settled universes of light and life there are no unexpected physical events of major importance. Relatively complete control over the material creation has been achieved; still the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of the settled universes to the evolving universes continue to challenge the skill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But these problems will gradually vanish with the diminution of new creative activity as the grand universe approaches culmination of evolutionary expression.

6. SPIRIT DOMINANCE

116:6.1 (1275.1) In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energy-matter is dominant except in personality, where spirit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is struggling for the mastery. The goal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is the subjugation of energy-matter by mind, the co-ordination of mind with spirit, and all of this by virtue of the creative and unifying presence of personality. Thus, in relation to personality, do physical systems become subordinate; mind systems, co-ordinate; and spirit systems, directive.

116:6.2 (1275.2) This union of power and personality is expressive on deity levels in and as the Supreme. But the actual evolution of spirit dominance is a

과 창조체들의 자유의지 행동들에 입각된 일종의 성장이다.

절대 차원들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 차원들에서 떠나자마자,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에너지와 영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공간을 향하여 움직임에 따라 그들 사이의 간격은 지역우주들 안에서 그들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넓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비슷하지도 않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개입해야만 한다.

그 에너지는 마음 활동에 대한 에너지의 반응을 드러내는 통제자 개인성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도 받을 수 있다. 이들 동일한 통제하는 실존개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질량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계층-산출하는 마음의 현존에 대하여 질량이 반응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지적 개인성에서 영 스스로가 마음을 통하여 에너지-물질의 정복을 위해 분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한 창조체의 잠재적 합일을 드러낸다.

우주들의 우주에 두루, 모든 기체들과 개인성들의 상호 의존이 있다. 창조자 아들들과 창조 영들은 우주들의 조직에서 힘 중심들과 물리통제자들의 협동하는 기능에 의존한다; 최극 힘 지도자들은 주(主) 영들의 전반적-통제 없이는 미완성이다. 인간 존재에서 물리적 생명의 장치는 부분적으로는 (개인적) 마음의 명령에 반응한다. 바로 이 마음은 반대로 의도적인 영의 인도에 의해 지배되며, 그러한 진화적 발달의 결과가 최극자의 새로운 자손, 여러 종류의 조화우주 실체의 새로운 개인적 통일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것은 전체의 경우에도 그렇다; 최극위의 영(靈) 개인은 신(神)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위일체 관계적-연합의 운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능자의 진화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노력은 시간과 공간의 개인성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노력의 절정과 극치는 전능 최극자의 행동이다. 그리고 전체의 성장이 부분들의 집합적 성장의 합인 반면, 부분들의 진화는 전체의 의도적 성장에 대한 부분화된 반영이라는 사실이 똑같이 뒤따른다.

파라다이스에서는 단일소(單一素)와 영이—이름만 제외하면 구별할 수 없는 하나와 같다. 하보나에서는 물질과 영이 뚜렷하게 다른 반면, 그와 동시에 태생적으로 조화롭다. 반면에, 일곱 초우주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주 에너지와 신성한 영 사이에 넓은 격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원형들과 영적 목적을 조화시키고 결국에는 통합하는 것에 마음 활동을 위한 더 큰 체험적 잠재가 있다. 공간의 시간-진화 우주들에서는 더 큰 신성 감소, 해결되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에 있어서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 초우주

growth which is predicated on the freewill acts of the Creators and creatures of the grand universe.

116:6.3 (1275.3) On absolute levels, energy and spirit are one. But the moment departure is made from such absolute levels, difference appears, and as energy and spirit move spaceward from Paradise, the gulf between them widens until in the local universes they have become quite divergent. They are no longer identical, neither are they alike, and mind must intervene to interrelate them.

116:6.4 (1275.4) That energy can be directionized by the action of controller personalities discloses the responsiveness of energy to mind action. That mass can be stabilized through the action of these same controlling entities indicates the responsiveness of mass to the order-producing presence of mind. And that spirit itself in volitional personality can strive through mind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discloses the potential unity of all finite creation.

116:6.5 (1275.5) There is an interdependence of all forces and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Creator Sons and Creative Spirits depend on the co-operative function of the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in the organization of universes; the Supreme Power Directors are incomplete without the overcontrol of the Master Spirits. In a human being the mechanism of physical life is responsive, in part, to the dictates of (personal) mind. This very mind may, in turn, become dominated by the leadings of purposive spirit, and the result of such evolutionary development is the production of a new child of the Supreme, a new personal unific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cosmic reality.

116:6.6 (1275.6) And as it is with the parts, so it is with the whole; the spirit person of Supremacy requires the evolutionary power of the Almighty to achieve completion of Deity and to attain destiny of Trinity association. The effort is made by the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but the culmination and consummation of this effort is the act of the Almighty Supreme. And while the growth of the whole is thus a totalizing of the collective growth of the parts, it equally follows that the evolution of the parts is a segmented reflection of the purposive growth of the whole.

116:6.7 (1275.7) On Paradise, monota and spirit are as one — indistinguishable except by name. In Havona, matter and spirit, while distinguishably different, are at the same time innately harmonious. In the seven superuniverses, however, there is great divergence; there is a wide gulf between cosmic energy and divine spirit; therefore is there a greater experiential potential for mind action in harmonizing and eventually unifying physical pattern with spiritual purposes. In the time-evolving universes of space there is greater divinity attenuation, more difficult problems to be

의 상황은—심지어는 최극자 신(神)에 이르기까지—창조체와 창조자에게 조화우주 체험의 가능성이 똑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진화적 체험의 더 큰 경기장이 된다.

절대 차원들에서 실존적인 영의 통치가, 유한 차원들과 일곱 초우주들에서는 진화적 체험이 된다. 그리고 이 체험은 필사 사람으로부터 최극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의해 똑같이 공유된다. 성취에 모두가 분투하고, 개인적으로 분투한다; 운명에 모두가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제 7 장. 대우주의 살아있는 유기체

대우주는 물리적 장엄의 물질적 창조, 영의 극치, 지성적 장대함뿐만 아니라, 그것은 장엄하고도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활기찬 조화우주의 광대한 창조의 기능구조에 두루 실제적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는 전능 최극자의 감지 가능한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지적 순환회로에 의해 간파된다, 그것은 마치 인간 몸체에 신경 감각 경로들의 망이 퍼져 있는 것과 흡사하다. 이 물리적 우주는 물질적 창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통로들이 퍼져있다, 그것은 마치 인간 몸체가 음식물의 흡수 가능한 에너지 생성물들의 순환 공급계통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광대한 우주가 인간 기능구조의 복잡한 화학-통제 체계에 비교될만한 장대한 전반적-통제의 그러한 조화-협동하는 중심부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단지 힘 중심의 몸체에 관하여 조금만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비로서 물리적 우주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사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큼, 대우주는 물질적 활동들과 공간의 조화우주 행동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 아래쪽으로부터 솟아나는 끊임없는 에너지들에게 의존한다.

마음이 필사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그것으로 필사자가 정체성과 개인성의 자아-의식이 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마음—심지어 최극 마음까지—은, 유한한 것의 전체성, 곧 그 곳에서 조화우주의 이 창발 하는 개인성의 영이 언제까지나 에너지-물질의 지배를 위하여 분투하는, 그 전체성 위에 증여되어 있다.

필사 사람은, 대우주가 영원한 아들의 멀리 퍼지는 영-중력 지배,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조화우주의 모든 창조계의 영원한 영적 가치들에 대한

solved, and larger opportunity to acquire experience in their solution. And this entire superuniverse situation brings into being a larger arena of evolutionary existence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smic experience is made available alike to creature and Creator — even to Supreme Deity.

116:6.8 (1276.1) The dominance of spirit, which is existential on absolute levels, becomes an evolutionary experience on finite levels and in the seven superuniverses. And this experience is shared alike by all, from mortal man to the Supreme Being. All strive, personally strive, in the achievement; all participate,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destiny.

7. THE LIVING ORGANISM OF THE GRAND UNIVERSE

116:7.1 (1276.2) The grand universe is not only a material creation of physical grandeur, spirit sublimity, and intellectual magnitude, it is also a magnificent and responsive living organism. There is actual life pulsating throughout the mechanism of the vast creation of the vibrant cosmos. The physical reality of the universes is symbolic of the perceivable reality of the Almighty Supreme; and this material and living organism is penetrated by intelligence circuits, even as the human body is traversed by a network of neural sensation paths. This physical universe is permeated by energy lanes which effectively activate material creation, even as the human body is nourished and energized by the circulatory distribution of the assimilable energy products of nourishment. The vast universe is not without those co-ordinating centers of magnificent overcontrol which might be compared to the delicate chemical-control system of the human mechanism. But if you only knew something about the physique of a power center, we could, by analogy, tell you so much more about the physical universe.

116:7.2 (1276.3) Much as mortals look to solar energy for life maintenance, so does the grand universe depend upon the unfailing energies emanating from nether Paradise to sustain the material activities and cosmic motions of space.

116:7.3 (1276.4) Mind has been given to mortals wherewith they may become self-conscious of identity and personality; and mind — even a Supreme Mind — has been bestowed upon the totality of the finite whereby the spirit of this emerging personality of the cosmos ever strives for the mastery of energy-matter.

116:7.4 (1276.5) Mortal man is responsive to spirit guidance, even as the grand universe responds to the far-flung spirit-gravity grasp of the Eternal Son,

우주의 초물질적 응집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꼭 그렇게, 영 인도에 응답한다.

인간 존재들은 전체이며 그리고 불멸의 우주 실체와의 영속하는 자아-정체화구현,—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의 융합을 이룰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최극자는 기원적 신(神), 파라다이스 삼위 일체의 절대 안정에 영속적으로 의존한다.

파라다이스 완전을 향한 사람의 충동, 하느님-달성을 향한 그의 분투는 오직 불멸의 혼의 진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화우주에서의 순수한 신성 긴장을 창조한다; 이것이 개별적 필사 창조체의 체험 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다. 그러나 대우주의 모든 창조체들과 창조자들이 하느님-달성과 신성한 완전을 위하여 똑같이 분투할 때, 거기에는 모든 창조체들의 진화하는 하느님, 최극존재의 영 개인과 전능의 힘의 장엄한 합성에서만 오로지 그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심오한 조화우주 긴장이 형성된다.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막강한 메신저(使者)에 의해 후원되었음]

the universal supermaterial cohesion of the eternal spiritual values of all the creations of the finite cosmos of time and space.

116:7.5 (1276.6) Human beings are capable of making an everlasting self-identification with total and indestructible universe reality — fusion wit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Likewise does the Supreme everlastingly depend on the absolute stability of Original Deity, the Paradise Trinity.

116:7.6 (1276.7) Man's urge for Paradise perfection, his striving for God-attainment, creates a genuine divinity tension in the living cosmos which can only be resolved by the evolution of an immortal soul; this is what happens in the experience of a single mortal creature. But when all creatures and all Creators in the grand universe likewise strive for God-attainment and divine perfection, there is built up a profound cosmic tension which can only find resolution in the sublime synthesis of almighty power with the spirit person of the evolving God of all creatures, the Supreme Being.

116:7.7 (1277.1)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 117 편 최극자 하느님

⇨ 116

유랜시아 책

118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7 편 최극자 하느님

섹션

소개

제 1 장. 최극존재의 본성

제 2 장. 진화적 성장의 근원

제 3 장. 우주 창조체에 대한 최극자의 의의(意義)

제 4 장. 유한한 하느님

제 5 장. 창조의 대혼(大魂)

제 6 장. 최극자에 관한 탐구

제 7 장. 최극자의 미래

PAPER 117

GOD THE SUPREME

SECTIONS

Introduction

1. Nature of the Supreme Being

2. The Source of Evolutionary Growth

3. Significance of the Supreme to Universe Creatures

4. The Finite God

5. The Oversoul of Creation

6. The Quest for the Supreme

7. The Future of the Supreme

소개

어떤 우주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실존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따라 최극자의 전능의 잠재는 한 단계 더 실제적이 된다. 하느님의 뜻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목적이며, 그것은 세 절대자들에서 잠재적이 되고, 영원한 아들에서 개인성구현되며, 무한한 영에서 우주 활동을 위해 결합되고, 파라다이스의 영속하는 원형을 안에서 영원으로 된다.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은 하느님의 전체 뜻의 가장 높은 유한 현시활동이 된다.

만약에 모든 대우주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충분한 삶을 상대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시간-공간 창조계는 빛과 생명에 안주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전능자, 최극위 신(神) 잠재가 최극자 하느님의 신성한 개인성의 창발에서 사실적으로 될 것이다.

진화하는 마음이 조화우주 마음의 순환회로들에게 동조되면,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우주의 원형들을 따라서 안정된다면, 전진하는 영이 주(主) 영들의 연합된 사명활동과 접촉하게 되면, 상승하는 필사자 개인성이 내주 하는 조절자의 신성한

INTRODUCTION

117:0.1 (1278.1) TO THE extent that we do the will of God in whatever universe station we may have our existence, in that measure the almighty potential of the Supreme becomes one step more actual. The will of God is the purpose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s it is potentialized in the three Absolutes, personalized in the Eternal Son, conjoined for universe action in the Infinite Spirit, and eternalized in the everlasting patterns of Paradise. And God the Supreme is becoming the highest finite manifestation of the total will of God.

117:0.2 (1278.2) If all grand universers should ever relatively achieve the full living of the will of God, then would the time-space creations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and then would the Almighty, the deity potential of Supremacy, become factual in the emergence of the divine personality of God the Supreme.

117:0.3 (1278.3) When an evolving mind becomes attuned to the circuits of cosmic mind, when an evolving universe becomes stabilized after the pattern of the central universe, when an advancing spirit contacts the united ministry of the Master

안내에 마침내 조율을 이루게 되면, 최극자의 실재성은 우주들에서 한 단계 더 실제화된다; 최극위의 신성은 조화우주 실현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대우주의 부분들과 개별존재들은 최극자의 전체 진화의 반영으로서 진화하며, 반면에 역으로 최극자는 모든 대우주 진화의 종합적인 누적 합계이다. 필사자의 견해에서 그 둘 모두는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상호작용이다.

제 1 장. 최극존재의 본성

최극자는 아름다운 물리적 조화, 지적 의미를 갖는 진리, 그리고 영적 가치의 선(善)함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감미로움과 영속하는 성취의 기쁨이다. 그는 대우주의 대혼(大魂)이고, 유한 조화우주의 의식(意識)이며, 유한 실체의 완성이고, 창조자-창조체 체험의 개인화구현이다. 모든 미래 영원에 두루, 최극자는 신(神)의 삼위일체 관계들에서 의지적인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최극 창조자들의 개인들로서 하느님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권역으로 하강하였으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아 파라다이스로 상승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달성 능력을 가진 창조체들을 창조하고 진화시켰다. 하느님을 계시하며-하강하는 창조자들과, 하느님을 찾으면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이 우주 행렬은 최극자의 신(神) 진화에 대한 계시이며, 그에서 하강자들과 상승자들 모두의 남득에서의 상호 관계, 영원한 우주적 형제신분의 발견을 성취한다. 그래서 최극존재는 완전한-창조자의 원인과 완전해지는-창조체의 응답의 체험의 유한한 합성이 되어간다.

대우주는 완성된 통일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영원히 추구하며, 이것은 이 조화우주 실존이 분별불가적 합일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창조적 활동과 힘의 명령 결과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바로 이 이들 삼위일체로서의 합일이 최극자에서 유한한 조화우주에게 표현되었으며, 그의 실체는 우주들이 삼위일체 정제화구현의 최대 차원을 달성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창조자의 뜻과 창조체의 뜻은 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동족이다. 왜냐하면 우주 완전의 성취에서 창조체와 창조자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느님과 연락하여 일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최종자를 공동창조한다. 하느님은, 그렇게 하여 창조체 체험의 최극위를 성취하는, 그의 아들들의 육신화에서 인간

Spirits, when an ascending mortal personality finally attunes to the divin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n has the actuality of the Supreme become real by one more degree in the universes; then has the divinity of Supremacy advanced one more step toward cosmic realization.

117:0.4 (1278.4) The parts and individuals of the grand universe evolve as a reflection of the total evolution of the Supreme, while in turn the Supreme is the synthetic cumulative total of all grand universe evolution. From the mortal viewpoint both are evolutionary and experiential reciprocals.

1. NATURE OF THE SUPREME BEING

117:1.1 (1278.5) The Supreme is the beauty of physical harmony, the truth of intellectual meaning, and the goodness of spiritual value. He is the sweetness of true success and the joy of everlasting achievement. He is the oversoul of the grand universe, the consciousness of the finite cosmos, the completion of finite reality, and the personification of Creator-creature experience. Throughout all future eternity God the Supreme will voice the reality of volitional experience in the trinity relationships of Deity.

117:1.2 (1278.6) In the persons of the Supreme Creators the Gods have descended from Paradise to the domains of time and space, there to create and to evolve creatures with Paradise-attainment capacity who can ascend thereto in quest of the Father. This universe procession of descending God-revealing Creators and ascending God-seeking creatures is revelatory of the Deity evolution of the Supreme, in whom both descenders and ascenders achieve mutuality of understanding, the discovery of eternal and universal brotherhood. The Supreme Being thus becomes the finite synthesis of the experience of the perfect-Creator cause and the perfecting-creature response.

117:1.3 (1279.1) The grand universe contains the possibility of, and ever seeks for, complete unification, and this grows out of the fact that this cosmic existence is a consequence of the creative acts and the power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which is unqualified unity. This very trinitarian unity is expressed in the finite cosmos in the Supreme, whose reality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as the universes attain to the maximum level of Trinity identification.

117:1.4 (1279.2) The will of the Creator and the will of the creature are qualitatively different, but they are also experientially akin, for creature and Creator can collaborate in the achievement of universe perfection. Man can work in liaison with God and thereby cocreate an eternal finaliter. God can work even as humanity in the incarnations of his Sons,

성으로 일할 수도 있다.

최극존재에서, 창조자와 창조체는 그의 뜻이 하나의 신성한 개인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신(神) 속에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최극자의 이 뜻은 창조체 또는 창조자의 뜻 이상의 어떤 것인데, 그것은 마치 네바돈의 주(主) 아들의 주권적인 뜻이 현재 신성과 인간성의 뜻이 합쳐진 것 이상의 어떤 것인 것과 같다. 파라다이스 완전과 시간-공간 체험의 연합은 실체의 신(神) 차원들에 새로운 의미가치를 낳는다.

최극자의 진화하는 신성한 본성은 대우주에서 모든 창조체들과 모든 창조자들의 비길 데 없는 체험에 대한 신뢰에 찬 묘사가 된다. 최극자에서, 창조자-신분과 창조체-신분은 일치한다; 그들은 그것이 미완성의 족쇄들로부터 완전과 해방을 찾아 영원한 길을 추구함에 따라서 모든 유한 창조를 예워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해결에 따라 수반되는 변천들에서 발생되는 그 체험에 의해 언제까지나 연합된다.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은 영의 사명활동, 파라다이스의 장엄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최극자의 체험에서 서로 관련된다. 최극자 하느님은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善)이다, 왜냐하면 신성의 이 개념들은 관념화의 체험에 대한 유한의 최대치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 삼원적 본질특성들의 영원한 근원들은 초(超)유한 차원들 위에 있지만, 창조체는 초(超)진리와 초(超)아름다움 그리고 초(超)선함으로써 그러한 근원들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창조자 미가엘은 이 세상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창조자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을 계시하였다. 그리고 이 신성한 애정이 발견되고 받아들여짐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 형제들에게도 이 사랑이 계시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 그러한 창조체의 애정은 최극자의 사랑에 대한 참된 반영이다.

최극자는 대칭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첫째 근원이며 중심은 위대한 세 절대자들에서 잠재이다, 파라다이스에서, 아들에게서 그리고 영에서 실제적이다; 그러나 최극자는 실제적인 동시에 잠재적이다, 창조체의 노력과 창조자의 목적에 똑같이 응답하는, 개인적 최극위와 전능의 힘의 존재이다; 우주에서 자아-행동하는 그리고 우주의 전체 총합에 자아-반응적이다; 최극 창조자인 동시에 최극 창조체다. 최극위의 신(神)은 전체 유한의 전체 총합을 그렇게 나타낸다.

제 2 장. 진화적 성장의 근원

최극자는 시간의 하느님이다; 시간에서의 창

who thereby achieve the supremacy of creature experience.

117:1.5 (1279.3) In the Supreme Being, Creator and creature are united in one Deity whose will is expressive of one divine personality. And this will of the Supreme is something more than the will of either creature or Creator, even as the sovereign will of the Master Son of Nebadon is now something more than a combination of the will of divinity and humanity. The union of Paradise perfection and time-space experience yields a new meaning value on deity levels of reality.

117:1.6 (1279.4) The evolving divine nature of the Supreme is becoming a faithful portrayal of the matchless experience of all creatures and of all Creators in the grand universe. In the Supreme, creatorship and creaturehood are at one; they are forever united by that experience which was born of the vicissitudes attendant upon the solution of the manifold problems which beset all finite creation as it pursues the eternal path in quest of perfection and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incompleteness.

117:1.7 (1279.5)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correlated in the ministry of the Spirit, the grandeur of Paradise, the mercy of the Son, and the experience of the Supreme. God the Supreme is truth, beauty, and goodness, for these concepts of divinity represent finite maximums of ideational experience. The eternal sources of these triune qualities of divinity are on superfinite levels, but a creature could only conceive of such sources as supertruth, superbeauty, and supergoodness.

117:1.8 (1279.6) Michael, a creator, revealed the divine love of the Creator Father for his terrestrial children. And having discovered and received this divine affection, men can aspire to reveal this love to their brethren in the flesh. Such creature affection is a true reflection of the love of the Supreme.

117:1.9 (1279.7) The Supreme is symmetrically inclusive.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potential in the three great Absolutes, is actual in Paradise, in the Son, and in the Spirit; but the Supreme is both actual and potential, a being of personal supremacy and of almighty power, responsive alike to creature effort and Creator purpose; self-acting upon the universe and self-reactive to the sum total of the universe; and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supreme creator and the supreme creature. The Deity of Supremacy is thus expressive of the sum total of the entire finite.

2. THE SOURCE OF EVOLUTIONARY GROWTH

117:2.1 (1280.1) The Supreme is God-in-time; his is

조체 성장의 비결은 그의 것이다; 미완성의 현재의 정복과 완성되는 미래의 성취 역시 그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한한 성장의 최종적 결실은: 통합하면서 창조적인 개인성 현존의 덕분으로 영에 의해 마음을 통하여 통제되는 힘이다. 이 모든 성장의 정점에 다다른 결과는 최극존재이다.

필사 사람에게, 실존은 성장과 같다. 그리고 보다 큰 우주 관점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의 인도를 받는 실존은—신분의 증강—체험적 성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현재의 우주 시대에 창조체 실존을 특징짓는 현재의 성장이 최극자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이러한 종류의 성장이 최극자가 성장하는 그 시대에 독특한 점이라는 것과, 최극자의 성장이 완성되면 그것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 왔다.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 속에 태어나 살고 있다; 그들은 마음과 영 자질들과 함께 개인성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들과 그에 대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상승자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믿고 납득하기로, 이 창조체-삼위일체화 아들들은 현재 우주 시대 안에 있는 반면, 실제로 다음 우주 시대—최극자의 성장 완성 다음에 있을 시대—에 속한다. 따라서 그들은 미완성과 결과적인 성장의 현재 지위로서 최극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하여 남겨져 있다.

나 자신의 계층인 막강한 메신저들은, 삼위일체를 포용하고 있는, 현재 우주 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로는 삼위일체 고정아들들처럼 지위에서는 앞선 우주 시대에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지위가 삼위일체의 포용으로 고정되어 있고, 체험이 더 이상 성장으로 결국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은 최극자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계층들의 어떤 것들이나, 최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달성과 최종자 지위를 열망하면서 유란시아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그러한 운명은 오직 너희가 최극자 안에 그리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 하다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극자의 성장의 주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최극자의 성장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의 지위가 (에너지-영 개념에서) 완성될 것이다. 최극자의 진화의 종료는 최극위의 일부분으로서의 창조체 진화의 끝도 보게 될 것이다. 성장의 어떤 종류가 외부 공간의 우주들을 특징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곱 초

the secret of creature growth in time; his also is the conquest of the incomplete present and the consummation of the perfecting future. And the final fruits of all finite growth are: power controlled through mind by spirit by virtue of the unifying and creative presence of personality. The culminating consequence of all this growth is the Supreme Being.

117:2.2 (1280.2) To mortal man, existence is equivalent to growth. And so indeed it would seem to be, even in the larger universe sense, for spirit-led existence does seem to result in experiential growth — augmentation of status. We have long held, however, that the present growth which characterizes creature existenc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is a function of the Supreme. We equally hold that this kind of growth is peculiar to the age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and that it will terminate with the comple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117:2.3 (1280.3) Consider the status of the creature-trinitized sons: They are born and liv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they have personalities, together with mind and spirit endowments. They have experiences and the memory thereof, but they do not grow as do ascenders. It is our belief and understanding that these creature-trinitized sons, while they are *in* the present universe age, are really *of* the next universe age — the age which will follow the completion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Hence they are not *in* the Supreme as of his present status of incompleteness and consequent growth. Thus they are nonparticipating in the experiential growth of the present universe age, being held in reserve for the next universe age.

117:2.4 (1280.4) My own order, the Mighty Messengers, being Trinity embraced, are nonparticipating in the growth of the present universe age. In a sense we are in status as of the preceding universe age as in fact are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One thing is certain: Our status is fixed by the Trinity embrace, and experience no longer eventuates in growth.

117:2.5 (1280.5) This is not true of the finalizers nor of any other of the evolutionary and experiential orders which are participants in the growth process of the Supreme. You mortals now living on Urantia who may aspire to Paradise attainment and finaliter status should understand that such a destiny is only realizable because you are in and of the Supreme, hence are participants in the cycle of the growth of the Supreme.

117:2.6 (1280.6) There will come an end sometime to the growth of the Supreme; his status will achieve completion (in the energy-spirit sense). This termination of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will also witness the ending of creature evolution as a part of Supremacy. What kind of growth may

우주의 진화하는 현재 시대에 보이는 모든 것과 매우 다른 어떤 것이 되리라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 최극위 성장에 참여하지 못한 박탈에 대하여 외부 공간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대우주의 진화적 시민들의 기능이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의 우주 시대의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실존하면서, 최극존재는 대우주에서 체험적 주권자로서 기능할 것이다.—다음 우주 시대의 시민들—외부-공간자들은, 후기-초우주시대의 성장 잠재, 전능 최극자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진화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 우주 시대의 힘-개인성 합성에서의 창조체로서의 참여가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최극자의 미완성을 이루고 있음은 덕목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제시되어 있는 우주들의 창조체-창조의 진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어있음은 그 자체로서 덕목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험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철학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대우주의 진화에 응하여 최극존재가 실재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극자의 점진적인 실재화구현에 응하여 유한한 이 조화우주가 점차적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들이 진화적인 상호 작용, 각자가 상대방의 성장을 촉진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창조체들과 우주들은, 높은지 낮은지, 최극자 안에서 진화하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이 우주 시대의 전체적인 유한적 활동의 통합된 합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개인성들에 대한 최극자 하느님의 전능한 힘의 진화, 최극존재의 출현이다.

제 3 장. 우주 창조체에 대한 최극자의 의의(意義)

최극존재, 최극자 하느님, 전능 최극자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 조화우주 실체는 모든 유한 실체들의 창발 하는 위상들에 대한 복잡하고도 우주적인 합성이다. 영원한 에너지, 신성한 영 그리고 우주 마음의 멀리 펼쳐진 분화는 최극자의 진화에서 유한한 정점을 달성하며, 그 최극자는 유한한 모든 성장의 전체 총합, 유한한 최대 완성의 신(神) 차원에서의 자아-실현이다.

최극자는 공간의 은하계 파노라마 속으로 구체화되는 삼극일체들의 창조적 무한성이 그것을 통하여 흐르는 신성한 통로이며, 시간의 장엄한

characterize the universes of outer space, we do not know. But we are very sure that it will be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anything that has been seen in the present age of the evolut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will undoubtedly be the function of the evolutionary citizens of the grand universe to compensate the outer-spacers for this deprivation of the growth of Supremacy.

117:2.7 (1280.7) As existent upon the consumm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upreme Being will function as an experiential sovereign in the grand universe. Outer-spacers — citizens of the next universe age — will have a postsuperuniverse growth potential, a capacity for evolutionary attainment presupposing the sovereignty of the Almighty Supreme, hence excluding creature participation in the power-personality synthesis of the present universe age.

117:2.8 (1281.1) Thus may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be regarded as a virtue since it makes possible the evolutionary growth of the creature-creation of the present universes. Emptiness does have its virtue, for it may become experientially filled.

117:2.9 (1281.2) One of the most intriguing questions in finite philosophy is this: Does the Supreme Being actualize in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the grand universe, or does this finite cosmos progressively evolve in response to the gradual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Or is it possible that they are mutually interdependent for their development? that they are evolutionary reciprocals, each initiating the growth of the other? Of this we are certain: Creatures and universes, high and low, are evolving within the Supreme, and as they evolve, there is appearing the unified summation of the entire finite activity of this universe age. And this is the appearance of the Supreme Being, to all personalities the evolution of the almighty power of God the Supreme.

3. SIGNIFICANCE OF THE SUPREME TO UNIVERSE CREATURES

117:3.1 (1281.3) The cosmic reality variously designated as the Supreme Being, God the Supreme, and the Almighty Supreme, is the complex and universal synthesis of the emerging phases of all finite realities. The far-flung diversification of eternal energy, divine spirit, and universal mind attains finite culmination in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who is the sum total of all finite growth, self-realized on deity levels of finite maximum completion.

117:3.2 (1281.4) The Supreme is the divine channel through which flows the creative infinity of the triadities that crystallizes into the galactic

개인성 드라마: 마음의 중재를 통한 에너지-물질에 대한 영의 정복이 그것에 반하여 일어난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나는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그는 자아-의식의 물질적 차원으로부터 하느님-의식의 영적 차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가 자아로부터 하느님에게 이르는 살아있는 상승의 길인 것과 같이, 최극자는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초월에 이르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亞)절대성의 통찰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다.

너희의 창조자 아들은 인간성으로부터 신성에 이르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제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사람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성으로부터 네바돈의 미가엘, 무한한 하느님의 아들의 파라다이스 신성을 향한 진보의, 이 우주 경로 횡단의 완성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최극존재는 유한한 제약들의 초월을 향한 우주적 접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창조체 진화, 진보 그리고 영성화 달성의 실제적 구현이며 개인적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로부터 하강하는 개인성들의 대우주 체험들조차도 시간의 순례자들의 상승 체험들에 대한 그의 총합을 보완하는 그의 체험의 부분들이다.

필사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상(以上)이다. 물질적인 입장에서, 이 말은 거의 진실이 아니지만, 특정한 우주적 잠재성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인간 종족에서, 진화적 달성의 동일한 드라마의 어떤 것이, 광대하게 더 큰 크기로 우주들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로, 펼쳐진다. 의지적 개인성인 사람은 최극자의 유한 잠재성의 현존으로 미(未)개인적 실존개체인 조절자와 연락하여 창조적 존재가 되며, 그 결과는 불멸의 혼이 꽃피는 것이다. 우주들에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개인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미(未)개인적 영과 연락하여 기능하며 그로 인하여 신(神) 실체의 새로운 힘 잠재를 갖는 창조적이 된다.

창조체로서의 필사 사람은 신(神)인 최극존재와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진화는 어떤 면들에서는 최극자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의 자기 자신의 결정들에 대한 강한 힘과 능력 그리고 일관성에 의해 물질적인 상태에서 영적 상태를 향해 의식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그는 그의 생각 조절자가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내려뻗치면서 모론시아적 혼 차원들에 닿는 새로운 기법을 발전시킴에 따라 성장하기도 한다; 혼이 일단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최극존재가 확대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의 주권은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행위들과 성취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panorama of space, against which takes place the magnificent personality drama of time: the spirit conquest of energy-matter through the mediation of mind.

117:3.3 (1281.5) Said Jesus: “I am the living way,” and so he is the living way from the material level of self-consciousness to the spiritual level of God-consciousness. And even as he is this living way of ascension from the self to God, so is the Supreme the living way from finite consciousness to transcendence of consciousness, even to the insight of absonity.

117:3.4 (1281.6) Your Creator Son can actually be such a living channel from humanity to divinity since he has personally experienced the fullness of the traversal of this universe path of progression, from the true humanity of Joshua ben Joseph, the Son of Man, to the Paradise divinity of Michael of Nebadon, the Son of the infinite God. Similarly can the Supreme Being function as the universe approach to the transcendence of finite limitations, for he is the actual embodiment and personal epitome of all creature evolution, progression, and spiritualization. Even the grand universe experiences of the descending personalities from Paradise are that part of his experience which is complementary to his summation of the ascending experiences of the pilgrims of time.

117:3.5 (1281.7) Mortal man is more than figuratively made in the image of God. From a physical standpoint this statement is hardly true, but with reference to certain universe potentialities it is an actual fact. In the human race, something of the same drama of evolutionary attainment is being unfolded as takes place, on a vastly larger scale,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Man, a volitional personality, becomes creative in liaison with an Adjuster, an impersonal entity, in the presence of the finite potentialities of the Supreme, and the result is the flowering of an immortal soul. In the universes the Creator personalities of time and space function in liaison with the impersonal spirit of the Paradise Trinity and become thereby creative of a new power potential of Deity reality.

117:3.6 (1282.1) Mortal man, being a creature, is not exactly like the Supreme Being, who is deity, but man's evolution does in some ways resemble the growth of the Supreme. Man consciously grows from the material toward the spiritual by the strength, power, and persistency of his own decisions; he also grows as his Thought Adjuster develops new techniques for reaching down from the spiritual to the morontial soul levels; and once the soul comes into being, it begins to grow in and of itself.

117:3.7 (1282.2) This is somewhat like the way in which the Supreme Being expands. His sovereignty grows in and out of the acts and

성장한다; 그것은 대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그의 힘이 지닌 장엄성의 진화이다. 그의 신(神) 본성은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전-실존의 합일체에 달려있다. 그러나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에 다른 측면이 여전히 실존한다: 그는 창조자에서-진화되고 삼위일체에서-유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자아-진화되고 자아-유래되었다. 최극자 하느님은 그 자신의 신(神) 실재화구현에서의 지적, 창조적인 참여자인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모른시아 혼도 그 자신의 불멸화 달성에서 마찬가지로 의지적, 창조적인 동반자이다.

아버지는 파라다이스의 에너지를 조종함에 있어서 그리고 최극자에게 이들 반응을 되돌려 내어놓는 것에서 공동 행위자와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자의 주권으로 그의 행위들이 언젠가 정점에 다다르게 될 창조자 개인성들의 생산에서 영원한 아들과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자의 완성된 진화가 그 주권을 그가 가지도록 인정하는 그러한 시기까지 대우주의 통치자로서 기능하는 삼위일체 개인성들의 창조에서 아들과 영 둘 모두와 협력한다. 아버지는 최극위의 진화의 촉진에 있어서, 자신의 신(神)과 신(神)-아닌 협력자들과 이것들과 그리고 여러 다른 방법들로서 조화-협동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서 홀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의 독자적 기능은 생각 조절자들과 그들의 연관된 실존개체들의 사명활동에서 가장 잘 계시될 것이다.

신(神)은 합일체이다, 삼위일체에서는 실존적이고 최극자에서는 체험적이며 그리고 필사자들에서는 조절자 융합으로의 창조체-실현화이다. 필사 사람에 있는 생각 조절자들의 현존은 우주의 본질적 합일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그리하여 사람, 곧 우주 개인성의 가능한 가장 저급 유형이, 가장 높고 그리고 영원한 실체의, 나아가 모든 개인성들의 근원적인 아버지의 실재적 단편을 그 자신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극존재는 그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창조자 및 행정-관리자 자녀들의 신성 성취의 결과로 진화한다. 사람의 불멸 혼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과의 관계적-연합으로 그리고 인간 마음의 개인성 결정들에 따라서 그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한다. 삼위일체와 최극자 하느님의 관계는 조절자와 진화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 시간과 공간의 창조적 대리자들에 의해 행동의 유한한 가능성들이 소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극존재가 창조자로서 직접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길보기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주의 먼 역사에서는 이것이 오직 한 번만 일어났다; 우주 반영성의 문제에서 유한 행동의 가능성들이 모두 소모되었을 때, 그때는 최극자가 모든 선행하는 창조자 활동들의 창조적 완성자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하는 창조자 신분인 창조적 활동의 주어진 주기를 완료하게 될

achievement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that is the evolution of the majesty of his power as the ruler of the grand universe. His deity nature is likewise dependent on the pre-existent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But there is still another aspect to the evolution of God the Supreme: He is not only Creator-evolved and Trinity-derived; he is also self-evolved and self-derived. God the Supreme is himself a volitional, creative participant in his own deity actualization. The human morontial soul is likewise a volitional, cocreative partner in its own immortalization.

117:3.8 (1282.3)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the Conjoint Actor in manipulating the energies of Paradise and in rendering these responsive to the Supreme.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the Eternal Son in the production of Creator personalities whose acts will sometime culminate in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The Father collaborates with both Son and Spirit in the creation of Trinity personalities to function as rulers of the grand universe until such time as the completed evolution of the Supreme qualifies him to assume that sovereignty. The Father co-operates with his Deity and non-Deity co-ordinates in these and many other ways in the furtherance of the evolution of Supremacy, but he also functions alone in these matters. And his solitary function is probably best revealed in the ministr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117:3.9 (1282.4) Deity is unity, existential in the Trinity, experiential in the Supreme, and, in mortals, creature-realized in Adjuster fusion. The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in mortal man reveals the essential unity of the universe, for man, the lowest possible type of universe personality, contains within himself an actual fragment of the highest and eternal reality, even the original Father of all personalities.

117:3.10 (1282.5) The Supreme Being evolves by virtue of his liaison with the Paradise Trinity and in consequence of the divinity successes of the creator and administrator children of that Trinity. Man's immortal soul evolves its own eternal destiny by association with the divine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ity decisions of the human mind. What the Trinity is to God the Supreme, the Adjuster is to evolving man.

117:3.11 (1282.6)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 Supreme Being is apparently unable to function directly as a creator except in those instances where the finite possibilities of action have been exhausted by the creative agencies of time and space. Thus far in universe history this has transpired but once; when the possibilities of finite action in the matter of universe reflectivity had been exhausted, then did the Supreme function as the creative culminator of all antecedent creator

때는 그가 언제든지 미래의 어느 시대에 완성자로서 다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극존재가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사실상 최극자의 잠재성에서 창조되었고 바로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가 사람을 진화시키지는 않지만; 진화의 본질 자체가 바로 최극자 자신이다. 유한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며 최극자의 내재성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소유한다.

최극자는 기원적인 원인성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을 촉진시키는 존재로 나타나며 모든 체험적-진화적 존재들의 운명으로 여겨지는 전체성 정점을 제공하도록 운명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유한 조화우주에 대한 개념을 창설하시고; 창조자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창조 영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이 관념을 사실화한다; 최극자는 전체 유한 세계를 최고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아(亞)절대 세계의 운명과 갖는 관계를 확립한다.

제 4 장. 유한한 하느님

우리가 존재의 지위와 신성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체 창조의 끊임없는 투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노력이 신성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최극자의 끊임없는 투쟁을 나타낸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최극자 하느님은 유한한 신(神)이며, 그는 단어 그대로의 전체 감각으로 유한성의 문제들과 맞설 수밖에 없다. 공간의 진화 안에서 시간의 변천과 별리는 우리들의 투쟁은, 그의 진화하는 본성이 가능성에서의 가장 바깥 한계까지 확대 중에 있는 활동의 구체 내에서, 주권의 완성과 자아의 실체를 성취하려는 그의 노력들에 대한 반영이다.

최극자는 대우주에 두루 나타나기 위해 투쟁한다. 그의 신성한 진화는 실존하는 모든 개인성의 지혜-행동에 어느 정도 입각하고 있다. 인간 존재가 영원한 생존을 선택할 때, 그는 운명을 공동으로-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상승하는 이 필사자의 삶 속에서 유한의 하느님은 증가된 양의 개인성 자아-실현과 체험적 주권의 확대를 얻는다. 그러나 만약에 창조체가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이 창조체의 선택에 의존되어 있었던 최극자의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지연, 대리적인 또는 평행하는 체험에 의해 보상되어야만 하는 결핍을 체험한다; 생존을 받지 못하는 개인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흡수되어 최극자 신(神)의 일부분이 된다.

하느님은 너무나 신뢰가 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을 심지어 인

actions. And we believe he will again function as a culminator in future ages whenever antecedent creatorship has completed an appropriate cycle of creative activity.

117:3.12 (1283.1) The Supreme Being did not create man, but man was literally created out of, his very life was derived from, the potentiality of the Supreme. Nor does he evolve man; yet is the Supreme himself the very essence of evolution. From the finite standpoint, we actually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within the immanence of the Supreme.

117:3.13 (1283.2) The Supreme apparently cannot initiate original causation but appears to be the catalyzer of all universe growth and is seemingly destined to provide totality culmination as regards the destiny of all experiential-evolutionary beings. The Father originates the concept of a finite cosmos; the Creator Sons factualize this idea in time and space with the consent and co-operation of the Creative Spirits; the Supreme culminates the total finite and establishes its relationship with the destiny of the absonite.

4. THE FINITE GOD

117:4.1 (1283.3) As we view the ceaseless struggles of the creature creation for perfection of status and divinity of being, we cannot but believe that these unending efforts bespeak the unceasing struggle of the Supreme for divine self-realization. God the Supreme is the finite Deity, and he must cope with the problems of the finite in the total sense of that word. Our struggles with the vicissitudes of time in the evolutions of space are reflections of his efforts to achieve reality of self and completion of sovereignty within the sphere of action which his evolving nature is expanding to the outermost limits of possibility.

117:4.2 (1283.4)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the Supreme struggles for expression. His divine evolution is in measure predicated on the wisdom-action of every personality in existence. When a human being chooses eternal survival, he is cocreating destiny; and in the life of this ascending mortal the finite God finds an increased measure of personality self-realization and an enlargement of experiential sovereignty. But if a creature rejects the eternal career, that part of the Supreme which was dependent on this creature's choice experiences inescapable delay, a deprivation which must be compensated by substitutional or collateral experience; as for the personality of the nonsurvivor, it is absorbed into the oversoul of creation, becoming a part of the Deity of the Supreme.

117:4.3 (1283.5) God is so trusting, so loving, that he gives a portion of his divine nature into the hands

간 존재들의 손안에 쥐어 주셔서 보관하게 하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신다. 아버지의 본성, 조절자 현존은 필사 존재의 선택에 상관없이 불멸이다. 최극자의 자녀, 진화하는 자아는 잘못 인도된 그러한 자아의 잠재적으로 통합되는 개인성이 최극위의 신(神)의 한 요소로서 존속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파괴될 수 있다.

인간적 개인성은 창조체 신분의 개별존재성을 정말로 파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화우주 자멸의 삶 속에서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존속되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 본질특성은 하나의 개별적인 창조체로서는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최극자는 우주들의 창조체들 안에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한 특정한 개인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상승하지 않는 존재의 독특한 개인성은 바다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최극자에게로 돌아간다.

유한 세계의 개인적 부분들 중에서 분리된 어떤 행동이라도 최극 총체자의 생겨나는 출현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는 다양한 부분들의 전체 행위들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개인성은 최극위 전체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지만, 각각의 인간 존재의 개인성은 유한 세계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의미-가치를 나타낸다; 개인성은, 일단 나타난 후에는, 살아있는 그 개인성의 계속적인 실존 안에서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표현을 결코 다시 찾아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아-표현을 위하여 분투할 때, 최극자는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신(神) 표현을 위해 분투한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듯이, 최극자는 모든 물체들의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다시 발견하였다. 우리가 자아-실현의 문제들을 정복하듯이, 체험의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전능 최극위를 성취하고 있다.

인류는 우주 안에서 노력하지 않고는 상승하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최극자도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행동 없이는 진화하지 않는다. 창조체들은 단순한 수동성만을 가지고는 완전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최극위의 영은 유한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 사명활동이 없이는 전능자의 힘을 사실화 시키지 못한다.

최극자에 대한 사람의 현세적 관계는 조화우주 도덕성, 의무에 대한 우주적 민감성과 용납이다. 이것은 상대적인 옳고 그름의 현세적 감각을 초월하는 도덕성이다; 그것은 체험적 신(神)에 대한 체험적 책무가 창조체의 자아-의식 이해에 직접적으로 입각하는 도덕성이다. 필사 사람과 다른 모든 유한 창조체들은 최극자 속에 실존하는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살아있는 잠재로부터 창조된다. 조절자-필사자 상승자가 최종자의 불멸성과 신성한 성격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최극자에게 달려 있다. 그 조절자가 인간 의지의 동의에 따라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원형틀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최극자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이다.

of even human beings for safekeeping and self-realization. The Father nature, the Adjuster presence, is indestructible regardless of the choice of the mortal being. The child of the Supreme, the evolving self, can be destroyed notwithstanding that the potentially unifying personality of such a misguided self will persist as a factor of the Deity of Supremacy.

117:4.4 (1283.6) The human personality can truly destroy individuality of creaturehood, and though all that was worth while in the life of such a cosmic suicide will persist, *these qualities will not persist as an individual creature*. The Supreme will again find expression in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but never again as that particular person; the unique personality of a nonascender returns to the Supreme as a drop of water returns to the sea.

117:4.5 (1284.1) Any isolated action of the personal parts of the finite is comparatively irrelevant to the eventual appearance of the Supreme Whole, but the whole is nonetheless dependent on the total acts of the manifold parts.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mortal is insignificant in the face of the total of Supremacy, but the personality of each human being represents an irreplaceable meaning-value in the finite; personality, having once been expressed, never again finds identical expression except in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at living personality.

117:4.6 (1284.2) And so, as we strive for self-expression, the Supreme is striving in us, and with us, for deity expression. As we find the Father, so has the Supreme again found the Paradise Creator of all things. As we master the problems of self-realization, so is the God of experience achieving almighty supremacy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117:4.7 (1284.3) Mankind does not ascend effortlessly in the universe, neither does the Supreme evolve without purposeful and intelligent action. Creatures do not attain perfection by mere passivity, nor can the spirit of Supremacy factualize the power of the Almighty without unceasing service ministry to the finite creation.

117:4.8 (1284.4) The temporal relation of man to the Supreme is the foundation for cosmic morality, the universal sensitivity to, and acceptance of, *duty*. This is a morality which transcends the temporal sense of relative right and wrong; it is a morality directly predicated on the self-conscious creature's appreciation of experiential obligation to experiential Deity. Mortal man and all other finite creatures are created out of the living potential of energy, mind, and spirit existent in the Supreme. It is upon the Supreme that the Adjuster-mortal ascender draws for the creation of the immortal and divine character of a finaliter. It is out of the very reality of the Supreme that the Adjuster, with

인간 개인성의 영성화와 영존화에 있어서의 조절자 진보의 진화는 최극자의 주권의 확대에 대한 직접적 산물이다. 인간적 진화에 있어서의 그러한 성취들은 그와 동시에 최극자의 진화적 실제화구현에 있어서의 성취이기도 하다. 최극자 없이는 창조체들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참말이지만 한편, 최극자의 진화가, 모든 창조체들의 완성된 진화와 독립하여서는, 결코 충분하게 달성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아마 참말일 것이다. 자아-의식 개인성들의 위대한 조화우주 책임이 여기에 들어 있다. 그 최극자 신(神)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사자의지의 선택에 의존한다. 그리고 창조체 진화와 최극자 진화의 둘 모두의 상호적 진보는 우주적 반영성의 불가해한 기능구조 위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게로 신실하고도 충만하게 가리키며 표현되고 있다.

필사 사람에게 주어진 큰 도전은 이렇다: 체험할 수 있는 조화우주의 가치 의미들을 너희들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신분 속으로 개인성구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너희가 하겠는가? 아니면 생존을 거부함으로써, 유한한 하느님의 진화에 대한 창조체 공헌을 그의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어떤 다른 시대의 다른 창조체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최극위의 이 비밀들이 잠을 자고 있도록 너희가 허용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최극자에 대한 그의 공헌이 될 것이며,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우주 시대의 큰 투쟁은 잠재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들에 의해 실제화구현되기를 추구함—사이에 있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파라다이스 탐험에 착수하였다면, 그는 영원의 넷물 속에 있는 물결처럼 흐르는 시간 작용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필사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그는 유한한 우주들 안에서 사건들의 흐름에 역행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창조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계시된 목적에 따라 냉혹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의지적인 창조는 영원의 탐험에 개인성이 참여하는 배역(配役)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필사 사람은 인간 실존의 최극 가치들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이 가치들의 진화를 아주 명확하게 방해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상승에 참여하는 것을 인간 자아가 그렇게 거부하는 범위까지, 바로 그 정도까지 최극자는 대우주에서 신성 표현의 성취가 연기된다.

필사 사람의 관리 영역 속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조절자 현존뿐만 아니라 최극자의 미래에 있어서의 미세한 단편의 운명에 대한 통제 역시 주어졌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의 운명을 달성하듯이 최극자는 신(神) 차원들의 운명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결정은 그것이 우리들 각자를 한

the consent of the human will, weaves the patterns of the eternal nature of an ascending son of God.

117:4.9 (1284.5) The evolution of Adjuster progress in the spiritualizing and eternalizing of a human personality is directly productive of an enlargement of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Such achievements in human evolution are at the same time achievements in the evolutionar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While it is true that creatures could not evolve without the Supreme, it is probably also true that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can never be fully attained independent of the completed evolution of all creatures. Herein lies the great cosmic responsibility of self-conscious personalities: That Supreme Deity is in a certain sense dependent on the choosing of the mortal will. And the mutual progression of creature evolution and of Supreme evolution is faithfully and fully indicated to the Ancients of Days over the inscrutable mechanisms of universe reflectivity.

117:4.10 (1284.6) The great challenge that has been given to mortal man is this: Will you decide to personalize the experiential value meanings of the cosmos into your own evolving selfhood? or by rejecting survival, will you allow these secrets of Supremacy to lie dormant, awaiting the action of another creature at some other time who will in *his* way attempt a creature contribution to the evolution of the finite God? But that will be his contribution to the Supreme, not yours.

117:4.11 (1284.7) The great struggle of this universe age is between the potential and the actual — the seeking for actualization by all that is as yet unexpressed. If mortal man proceeds upon the Paradise adventure, he is following the motions of time, which flow as currents within the stream of eternity; if mortal man rejects the eternal career, he is moving counter to the stream of events in the finite universes. The mechanical creation moves on inexorably in accordance with the unfolding purpose of the Paradise Father, but the volitional creation has the choice of accepting or of rejecting the role of personality participation in the adventure of eternity. Mortal man cannot destroy the supreme values of human existence, but he can very definitely prevent the evolution of these values in his own personal experience. To the extent that the human self thus refuses to take part in the Paradise ascent, to just that extent is the Supreme delayed in achieving divinity expression in the grand universe.

117:4.12 (1285.1) Into the keeping of mortal man has been given not only the Adjuster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but also control over the destiny of an infinitesimal fraction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For as man attains human destiny, so does the Supreme achieve destiny on deity levels.

117:4.13 (1285.2) And so the decision awaits each of

때 기다렸듯이 너희들 각자를 기다린다: 너희는 유한한 마음의 결정들에 그토록 의존하는 시간의 하느님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동물적인 퇴보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우주들의 최극자 개인성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각각의 창조체에게 그토록 의존적인, 모든 창조체들의 대형(大兄)을 실망시킬 것인가? 너희는 우주 생애의 매혹적인 광경—최극위의 하느님을 찾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진화에 있어서의 신성한 참여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발견—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 실현되지 않은 영역 속으로 너희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선물들—그가 증여하는 실체—은 그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이 아니며; 그는 그 자신으로부터 창조를 분리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를 도는 창조체들 속에 긴장을 설립하였다. 하느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에게 불멸성—영원한 실체—의 잠재를 그에게 수여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실재성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사람의 실체—실재성—는 점점 더 커진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비(非)실체—실존에서의 중지—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의지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제공하게 되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현재보다 더욱 낮게 만든다.

제 5 장. 창조의 대혼(大魂)

위대한 최극자는 대우주의 조화우주 대혼(大魂)이다. 그의 안에서 조화우주의 본질특성과 양(量)은 그들의 신(神) 반영을 발견한다; 그의 신(神) 본성은 진화하는 우주들 전체에 걸친 모든 창조체-창조자 본성의 전체 광대함의 모자이크 식 합성물이다. 그리고 최극자는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용하는 창조적 의지를 체현하는 실재화하는 신(神)이기도 하다.

지적인, 유한 세계의 잠재적으로 개인적인 자아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창발하며 최극자 안에서 유한한 시간-공간 신(神) 합성을 성취한다. 창조체가 창조자의 뜻에 따를 때, 그는 자신의 개인성을 덮거나 굴복시키지 않는다; 유한한 하느님의 실재화구현에 있어서 개별 개인성 참여자들은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적 자아신분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개인성들은 오히려 이 위대한 신(神) 탐험에 참여함으로써 진보적으로 증강된다; 신성과의 그러한 연합에 의하여 사람은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를 최극위의 바로 입구까지 고양시키고 부유하게 하며 영성화시키고 통합시킨다.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물질적 마음과 조절자의 공동 창조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 상승하며 그 후에, 최종의 무리단 속으

you as it once awaited each of us: Will you fail the God of time, who is so dependent upon the decisions of the finite mind? will you fail the Supreme personality of the universes by the slothfulness of animalistic retrogression? will you fail the great brother of all creatures, who is so dependent on each creature? can you allow yourself to pass into the realm of the unrealized when before you lies the enchanting vista of the universe career — the divine discovery of the Paradise Father and the divine participation in the search for, and the evolution of, the God of Supremacy?

117:4.14 (1285.3) God's gifts — his bestowal of reality — are not divorcements from himself; he does not alienate creation from himself, but he has set up tensions in the creations circling Paradise. God first loves man and confers upon him the potential of immortality — eternal reality. And as man loves God, so does man become eternal in actuality. And here is mystery: The more closely man approaches God through love, the greater the reality — actuality — of that man. The more man withdraws from God, the more nearly he approaches nonreality — cessation of existence. When man consecrates his will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when man gives God all that he *has*, then does God make that man more than he is.

5. THE OVERSOUL OF CREATION

117:5.1 (1285.4) The great Supreme is the cosmic oversoul of the grand universe. In him the qualities and quantities of the cosmos do find their deity reflection; his deity nature is the mosaic composite of the total vastness of all creature-Creator nature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And the Supreme is also an actualizing Deity embodying a creative will which embraces an evolving universe purpose.

117:5.2 (1285.5) The intellectual, potentially personal selves of the finite emerge from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achieve finite time-space Deity synthesis in the Supreme. When the creature submits to the will of the Creator, he does not submerge or surrender his personality; the individual personality participants in the actualization of the finite God do not lose their volitional selfhood by so functioning. Rather are such personalities progressively augmented by participation in this great Deity adventure; by such union with divinity man exalts, enriches, spiritualizes, and unifies his evolving self to the very threshold of supremacy.

117:5.3 (1286.1) The evolving immortal soul of man, the joint creation of the material mind and the Adjuster, ascends as such to Paradise and

로 모집되었을 때, 최종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의 기법에 의해 영원한 아들의 영-중력 순환회로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결연을 맺게 된다. 그렇게 하여 그러한 최종자는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성들로서 체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후보자들이 된다. 그리고 이 필사자 지능체들이 최종의 무리단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임무에 있어서 영 실존의 7번째 단계를 달성하게 될 때, 그러한 이원적(二元的) 마음들은 삼원 일체적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조화된 이 두 마음들은 그 때 실재화된 최극존재의 체험적 마음과의 연합 속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원한 미래에, 최극자 하느님이 영성화된 마음, 상승자 사람의 불멸의 혼 속에서 실재화될 것인데—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으로 그려진다.—그것은 우주 아버지가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은 최극자와 연합하지 않으며 그의 개인적 정체성 속에 잠기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체험에 대한 우주적 반향은 최극자 신성한 체험화의 한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한다. “행동은 우리들의 것이지만, 결과는 하느님의 것이다.”

진보하는 개인성은 그것이 우주들의 상승하는 차원들을 통하여 지나갈 때 실재화된 실체의 흔적을 남긴다. 그들이 마음이나 영 또는 에너지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확장되는 창조계는 그들의 권역을 두루 거치는 개인성의 진보에 의해 변경된다. 사람이 작용할 때 최극자는 반작용하며 이러한 활동이 진보라는 사실을 구성한다.

에너지와 마음과 영이라는 거대한 순환회로들은 결코 상승하는 개인성들의 영구적인 소유물들이 될 수 없다; 이들 사명활동은 최극위의 일부분으로 언제나 남아 있다. 필사자 체험에 있어서 인간 지능은 보조 마음-영들의 율동적인 파동 속에 들어 있으며 이 사명활동 안에서 순환함으로써 생성된 그 경기장 안에서 그것이 결정하는 것들에게 영향을 준다. 필사자가 죽음에 처하게 될 때 인간 자아는 그 보조 순환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된다. 이 보조 장치들이 한 개인성으로부터 다른 개인성으로 전환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들은 결정-행동의 미(未)개인적 반향들을 철중 하느님을 통하여 최극자 하느님에게로 전환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적어도 경배와 지혜 보조자들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순환회로에도 그러하다: 사람은 우주들을 통하여 자신이 상승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개인성의 한 부분으로서는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사명활동의 이 순환회로들은, 진리의 영이나 성령 또는 초우주 영 현존들이거나에 상관없이, 상승하는 개인성 안에서 창발하는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이 가치들은 철중 하느님을 통하여 최극자에게 확실하게 전

subsequently, when mustered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becomes allied in some new way with the spirit-gravity circuit of the Eternal Son by a technique of experience known as *finaliter transcendation*. Such finaliters thus become acceptable candidates for experiential recognition as personalities of God the Supreme. And when these mortal intellects in the unrevealed future assignments of the Corps of the Finality attain the seventh stage of spirit existence, such dual minds will become triune. These two attuned minds, the human and the divine, will become glorified in union with the experiential mind of the then actualized Supreme Being.

117:5.4 (1286.2) In the eternal future, God the Supreme will be actualized — creatively expressed and spiritually portrayed — in the spiritualized mind, the immortal soul, of ascendant man, even as the Universal Father was so revealed in the earth life of Jesus.

117:5.5 (1286.3) Man does not unite with the Supreme and submerge his personal identity, but the universe repercussions of the experience of all men do thus form a part of the divine experiencing of the Supreme. “The act is ours, the consequences God’s.”

117:5.6 (1286.4) The progressing personality leaves a trail of actualized reality as it passes through the ascending levels of the universes. Be they mind, spirit, or energy, the growing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re modified by the progression of personality through their domains. When man acts, the Supreme reacts, and this transaction constitutes the fact of progression.

117:5.7 (1286.5) The great circuits of energy, mind, and spirit are never the permanent possessions of ascending personality; these ministries remain forever a part of Supremacy. In the mortal experience the human intellect resides in the rhythmic pulsation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and effects its decisions within the arena produced by encirclement within this ministry. Upon mortal death the human self is everlastingly divorced from the adjutant circuit. While these adjutants never seem to transmit experience from one personality to another, they can and do transmit the impersonal repercussions of decision-action through God the Sevenfold to God the Supreme. (At least this is true of the adjutants of worship and wisdom.)

117:5.8 (1286.6) And so it is with the spiritual circuits: Man utilizes these in his ascent through the universes, but he never possesses them as a part of his eternal personality. But these circuits of spiritual ministry, whether Spirit of Truth, Holy Spirit, or superuniverse spirit presences, are receptive and reactive to the emerging values in ascending personality, and these values are faithfully transmitted through the Sevenfold to the

달되고 있다.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영향들이 지역우주의 업무들인 반면, 그들의 안내는 주어진 하나의 지역 창조라는 지리적 제한에 온통 속박되지는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자신이 기원된 지역우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나가게 될 때, 그는 물질세계들과 모론시아 세계들의 철학적인 미로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안내해 온 진리의 영의 사명활동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상승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위기 때마다 파라다이스 순례자를 확실하게 지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그 길이다.” 너희가 지역우주의 권역을 떠나게 될 때, 너희는 창발하는 최극존재의 영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초우주 반영성이라는 저장물들을 통하여, 파라다이스에서 증여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위안을 주는 지도적 영에 의해 너희의 파라다이스 상승 여정에서 계속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우주 사명활동에 대한 이러한 여러 겹의 순환 회로들이 최극자 안에서 진화적 체험의 의미들과 가치들 그리고 사실들을 어떻게 등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이 순환회로들에게 즉각적으로 증여된 존재들이 파라다이스에서 기원된 최극 창조자들의 개인들을 통하여 이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지능체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그들의 사명활동에 있어서, 일곱 보조 마음-영들의 마음-체험 축적물들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지역우주 체험의 일부분이며, 이 창조 영을 통하여 그들은 최극위의 마음속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과 성령과의 필사자 체험들은 최극위의 개인 안에 비슷한 기법들에 의해 등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조절자의 체험조차도 최극자 하느님의 신성 속에서 공명(共鳴)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조절자들이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최극자와 비슷하며, 필사 사람의 진화하는 혼은 최극자 안에서의 그러한 체험을 위하여 이미-실존하는 선제적 가능성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창조의 다양한 체험들은 최극위의 진화의 일부분이 된다. 창조체들은 자신들이 아버지께로 상승할 때 유한 세계의 본질 특성과 양(量)을 활용한다; 그렇게 이용하는 미(未)개인적 영향들은 살아있는 조화우주, 최극자 개인의 일부분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다.

사람 자신이 개인성 소유로서 자기와 함께 간직하고 있는 그것은, 그의 파라다이스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우주의 마음 그리고 영 순환회로들을 이용해 온 체험의 성격 결과물이다.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그가 이 결정을 행동 속에서 완료할 때,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되며, 이 체험의 의미들과 가치들은 유한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들에서 언제까지나 그의 성격의 한 부분이 된다. 조화우주적으로 도덕적이며

Supreme.

117:5.9 (1286.7) While such spiritual influences as the Holy Spirit and the Spirit of Truth are local universe ministrations, their guidance is not wholly confined to the geographic limitations of a given local creation. As the ascending mortal passes beyond the boundaries of his local universe of origin, he is not entirely deprived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has so constantly taught and guided him through the philosophic mazes of the material and morontial worlds, in every crisis of ascension unfailingly directing the Paradise pilgrim, ever saying: “This is the way.” When you leave the domains of the local universe, through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the emerging Supreme Being and through the provisions of superuniverse reflectivity, you will still be guided in your Paradise ascent by the comforting directive spirit of the Paradise bestowal Sons of God.

117:5.10 (1287.1) How do these manifold circuits of cosmic ministry register the meanings, values, and facts of evolutionary experience in the Supreme? We are not exactly certain, but we believe that this registry takes place through the persons of the Supreme Creators of Paradise origin who are the immediate bestowers of these circuits of time and space. The mind-experience accumulations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in their ministry to the physical level of intellect, are a part of the local universe experience of the Divine Minister, and through this Creative Spirit they probably find registry in the mind of Supremacy. Likewise are mortal experiences with the Spirit of Truth and the Holy Spirit probably registered by similar techniques in the person of Supremacy.

117:5.11 (1287.2) Even the experience of man and Adjuster must find echo in the divinity of God the Supreme, for, as the Adjusters experience, they are like the Supreme, and the evolving soul of mortal man is created out of the pre-existent possibility for such experience within the Supreme.

117:5.12 (1287.3) In this manner do the manifold experiences of all creation become a part of the evolution of Supremacy. Creatures merely utilize the qualities and quantities of the finite as they ascend to the Father; the impersonal consequences of such utilization remain forever a part of the living cosmos, the Supreme person.

117:5.13 (1287.4) What man himself takes with him as a personality possession are the character consequences of the experience of having used the mind and spirit circuits of the grand universe in his Paradise ascent. When man decides, and when he consummates this decision in action, man experiences, and the meanings and the values of this experience are forever a part of his eternal character on all levels, from the finite to the

신성하게 영적인 성격은, 진지한 경배에 의해 조명되고, 지능적인 사랑에 의해 영화롭게 되며 형제처럼 행하는 봉사 안에서 완료되어온, 개인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창조체의 자본이 되는 축적물을 나타낸다.

진화하는 최극자는, 우주들의 우주와 접촉하는 한정된 체험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그들의 무능력에 대하여 언젠가는 결국에는 유한 창조체들을 보완할 것이다. 창조체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유한한 그들의 진화적 마음들은 무한이자 절대인 아버지를 실제로 납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창조체의 체험이 최극자 안에 그리고 그 일부분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창조체들이 유한 실존의 최종적 차원에 도달하는 때에, 그리고 전체 우주 발전이 실제적인 신성 현존에 따라서 그들의 최극자 하느님 달성을 가능하게 만든 후에는, 그러면, 선천적인, 그러한 접촉의 사실 안에서, 전체 체험과 접촉한다. 시간의 유한성은 그 속에 영원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진화의 충만함이 조화우주 성장 수용력의 소진을 증명하게 되면, 전체 유한은 궁극자로서의 아버지를 찾아 영원한 생애의 아(亞)절대 위상들을 시작할 것이다.

제 6 장. 최극자에 관한 탐구

우리는 우주들에서 최극자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움직이거나 정지된,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신비 속에서 식별할 수 없으며,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있다.” 전능 최극자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의 형태,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의 원형틀이다.” 최극자는 너희 우주의 고향이며, 너희가 그를 발견하는 때, 그것은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체험적 부모이며, 심지어는 인간 존재들의 체험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성한 부모신분의 체험 속에서 그는 성장해 왔다. 그가 너희를 아는 것은 그가 창조자와-같음과 마찬가지로 그는 창조체와-같음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에서 최극자의 의식이 탄생되는 것은 너희가 어쩔 수가 없다. 하느님이 너희의 신성한 아버지인 것처럼, 최극자는 너희의 신성한 어머니이다, 그 어머니 안에서 너희는 너희가 우주 창조체로서 살아가는 내내 양육되고 있다. “최극자는 얼마나 우주적인지!—그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창조의 한정 없는 만물이 삶을 위하여 그의 현존에 의존하며, 어떤 것도 거절되지 않았다.”

네바돈에 대한 미가엘의 관계가 유한 조화우주에 대한 최극자의 관계이다; 그의 신(神)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해 흘러나가는 위대한 큰길이다, 그리고 유한 창조체들이 사랑이신 아버지를 찾아 안쪽으로 지나

final. Cosmically moral and divinely spiritual character represents the creature's capital accumulation of personal decisions which have been illuminated by sincere worship, glorified by intelligent love, and consummated in brotherly service.

117:5.14 (1287.5) The evolving Supreme will eventually compensate finite creatures for their inability ever to achieve more than limited experience contact with the universe of universes. Creatures can attain the Paradise Father, but their evolutionary minds, being finite, are incapable of really understanding the infinite and absolute Father. But since all creature experiencing registers in, and is a part of, the Supreme, when all creatures attain the final level of finite existence, and after total universe development makes possible their attainment of God the Supreme as an actual divinity presence, then, inherent in the fact of such contact, is contact with total experience. The finite of time contains within itself the seeds of eternity; and we are taught that, when the fullness of evolution witnesses the exhaustion of the capacity for cosmic growth, the total finite will embark upon the absonite phases of the eternal career in quest of the Father as Ultimate.

6. THE QUEST FOR THE SUPREME

117:6.1 (1287.6) We seek the Supreme in the universes, but we find him not. “He is the within and the without of all things and beings, moving and quiescent. Unrecognizable in his mystery, though distant, yet is he near.” The Almighty Supreme is “the form of the yet unformed, the pattern of the yet uncreated.” The Supreme is your universe home, and when you find him, it will be like returning home. He is your experiential parent, and even as in the experience of human beings, so has he grown in the experience of divine parenthood. He knows you because he is creaturelike as well as creatorlike.

117:6.2 (1288.1) If you truly desire to find God, you cannot help having born in your minds the consciousness of the Supreme. As God is your divine Father, so is the Supreme your divine Mother, in whom you are nurtured throughout your lives as universe creatures. “How universal is the Supreme — he is on all sides! The limitless things of creation depend on his presence for life, and none are refused.”

117:6.3 (1288.2) What Michael is to Nebadon, the Supreme is to the finite cosmos; his Deity is the great avenue through which the love of the Father flows outward to all creation, and he is the great avenue through which finite creatures pass inward

는 위대한 큰길이다. 심지어는 생각 조절자들도 그에게 관련되어 있다; 본질적인 본성과 신성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같다, 그러나 그들이 공간의 우주들에서 시간의 사건들을 체험할 때에는, 그들은 최극자와 같아진다.

창조자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창조체의 행동은 조화우주 가치 그 자체이며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재(遍在)되어있는 조화-협동의 기세, 아마도 최극존재의 끊임없이 확대되는 활동의 기능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되는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실제로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행동의 아들이며 최극존재, 우주 어머니의 우주 반응활동의 자녀이다. 어머니의 영향은 성장하는 혼의 지역우주 자녀신분에 두루 인간 개인성을 지배한다. 신(神) 부모들의 영향은 조절자 융합 이후와 초우주 생애 동안에 더욱 동등하게 되지만, 시간의 창조체들이 영원의 중앙 우주 횡단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본성은 점점 증가하는 현시로 되어간다, 우주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최종의 무리단으로의 입장이 허용되면서 유한한 현시활동은 그 정점에 다다른다.

최종자 달성의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상승하는 자아의 체험적인 어머니 본질특성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 그리고 무한한 영의 마음 현존과의 접촉과 융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대우주에서의 최종자 활동 영역에 두루, 최극자의 보이지 않는 어머니 잠재의 새로운 각성, 체험적 의미들의 새로운 실현,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 생애의 체험적 가치들의 새로운 합성이 나타난다. 자아의 이러한 깨달음은 최극자의 어머니 유전성이 아버지의 조절자 유전성과의 제한적 동시성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여섯 번째 단계에 있는 최종자의 우주 생애들에서 계속될 것이다. 대우주 기능의 이 흥미로운 기간은 상승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필사자의 계속적인 성숙한 생애를 나타낸다.

실존의 여섯 번째 단계의 완성과 영 지위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해지는 체험, 성숙되는 지혜 그리고 신성 실현의 진보하는 시대들이 뒤이어 일어날 것이다. 최종자의 본성에서 이것은 영 자아-실현을 위한 마음 분투의 완성된 달성, 유한한 가능성들의 한계들 안에서 상승하는 사람-본성과 신성한 조절자-본성과의 조화-협동의 완성과 동등할 것이다. 그렇게 장엄한 우주 자아는 이렇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최종자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최극자의 영원한 우주 자녀, 창조되었거나 창조 중 이거나, 또는 진화하고 있는 만물들과 그리고 존재들에 대한 유한한 관리-행정에 관련된 그 모든 행동 또는 일에 있는 개인성들과 그리고 우

in their quest of the Father, who is love. Even Thought Adjusters are related to him; in original nature and divinity they are like the Father, but when they experience the transactions of time in the universes of space, they become like the Supreme.

117:6.4 (1288.3) The act of the creature's choosing to do the will of the Creator is a cosmic value and has a universe meaning which is immediately reacted to by some unrevealed but ubiquitous force of co-ordination, probably the functioning of the ever-enlarging action of the Supreme Being.

117:6.5 (1288.4) The morontia soul of an evolving mortal is really the son of the Adjuster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hild of the cosmic reaction of the Supreme Being, the Universal Mother. The mother influence dominates the human personality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childhood of the growing soul. The influence of the Deity parents becomes more equal after the Adjuster fusion and during the superuniverse career, but when the creatures of time begin the traversal of the central universe of eternity, the Father nature becomes increasingly manifest, attaining its height of finite manifestation upon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admission into the Corps of the Finality.

117:6.6 (1288.5) In 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finaliter attainment the experiential mother qualities of the ascending self become tremendously affected by contact and infusion with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and the mind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Then, throughout the realms of finaliter activity in the grand universe, there appears a new awakening of the latent mother potential of the Supreme, a new realization of experiential meanings, and a new synthesis of experiential values of the entire ascension career. It appears that this realization of self will continue in the universe careers of the sixth-stage finaliters until the mother inheritance of the Supreme attains to finite synchrony with the Adjuster inheritance of the Father. This intriguing period of grand universe function represents the continuing adult career of the ascendant and perfected mortal.

117:6.7 (1288.6)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stage of existence and the entrance upon the seventh and final stage of spirit status, there will probably ensue the advancing ages of enriching experience, ripening wisdom, and divinity realization. In the nature of the finaliter this will probably equal the completed attainment of the mind struggle for spirit self-realization, the completion of the co-ordination of the ascendant man-nature with the divine Adjuster-nature within the limits of finite possibilities. Such a magnificent universe self thus becomes the eternal finaliter son of the Paradise Father as well as the eternal universe child of the Mother Supreme, a universe

주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둘 모두를 대표하도록 분별화된 우주 자아가 된다.

혼이 진화하는 모든 인간들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 최극존재의 진화적 아들들이다. 그러나 필사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유산에 대해 혼-의식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신(神) 동족관계의 확신은 신앙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삶 체험은 최극존재의 우주 자질과 우주 아버지의 우주 현존(그 어떤 것도 개인성은 아니다)이 시간의 모론시아 혼과 그리고 우주 운명과 영원한 봉사의 인간적이고-신성한 최종자 성격을, 그 속에서 진화시키고 있는 조화우주 누에고치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이 인간 실존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 다른 체험들은 그들의 본성과 내용에서 제한되지만,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창조체의 이해 능력 한계 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바로 이 체험은 스스로 능력을 확대시킨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발견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이미 찾은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탐색은, 증여되어지는 새롭고도 더욱 위대한 사랑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수반하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증여이다.

모든 참된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은 그 자신이 이 사랑을 자기 이웃들에게 줌으로써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인다. 사랑은 역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잡아가둘 수 없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설레게 하며 항상 움직인다.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와서 그의 가슴속에 그것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사 사람에게 그가 차례로 이 사랑을 자기 동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개인성을 통과해 지나감으로써만 실체가 된다. 위대한 사랑의 순환회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들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전해지며, 그리하여 최극자에게 도달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주 하는 조절자의 사명활동에 의해 필사자 개인성에서 나타난다. 하느님을 아는 그러한 아들은 이 사랑을 자신의 우주 형제들에게 나타내며, 형제우애에서의 이 애정은 최극자의 사랑의 본질이다.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극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의 창조 신(新)시대에서 창조체가 최극위에 접근하는 큰길은 오직 세 개밖에 없다:

1.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영원한 섬으로부터 하보나를 통하여 하강하며, 그곳에서 그들은 파라다이스-하보나 실체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주(主) 영들로부터 창조자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최극 창조자 개인성들의 다양한 활동들의 탐구적인 발견으로써 최극의 이해를 위한 능력을 취득한다.

self qualified to represent both the Father and Mother of universes and personalities in any activity or undertaking pertaining to the finite administration of created, creating, or evolving things and beings.

117:6.8 (1289.1) All soul-evolving humans are literally the evolutionary sons of God the Father and God the Mother, the Supreme Being. But until such time as mortal man becomes soul-conscious of his divine heritage, this assurance of Deity kinship must be faith realized. Human life experience is the cosmic cocoon in which the universe endowments of the Supreme Being and the universe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none of which are personalities) are evolving the morontia soul of time and the human-divine finaliter character of universe destiny and eternal service.

117:6.9 (1289.2) Men all too often forget that God is the greatest experience in human existence. Other experiences are limited in their nature and content, but the experience of God has no limits save those of the creature's comprehension capacity, and this very experience is in itself capacity enlarging. When men search for God, they are searching for everything. When they find God, they have found everything. The search for God is the unstinted bestowal of love attended by amazing discoveries of new and greater love to be bestowed.

117:6.10 (1289.3) All true love is from God, and man receives the divine affection as he himself bestows this love upon his fellows. Love is dynamic. It can never be captured; it is alive, free, thrilling, and always moving. Man can never take the love of the Father and imprison it within his heart. The Father's love can become real to mortal man only by passing through that man's personality as he in turn bestows this love upon his fellows. The great circuit of love is from the Father, through sons to brothers, and hence to the Supreme. The love of the Father appears in the mortal personality by the ministry of the indwelling Adjuster. Such a God-knowing son reveals this love to his universe brethren, and this fraternal affection is the essence of the love of the Supreme.

117:6.11 (1289.4) There is no approach to the Supreme except through experience, and in the current epochs of creation there are only three avenues of creature approach to Supremacy:

1. The Paradise Citizens descend from the eternal Isle through Havona, where they acquire capacity for Supremacy comprehension through observation of the Paradise-Havona reality differential and by exploratory discovery of the manifold activities of the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ranging from the Master Spirits to the Creator Sons.

2. 최극 창조자들의 진화적 우주들로부터 올라오는 시간-공간 상승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합일에 대한 증강하는 인식에 대한 예비단계로서 하보나를 통과하면서 최극자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3. 하보나 원주민들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내려오는 순례자들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로부터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최극자에 대한 이해를 획득한다. 하보나 원주민들은 영원한 섬의 시민들과 진화하는 우주들의 시민들의 기본에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선 천적으로 있다.

진화적 창조체들에게는 우주 아버지에게 도달하는 일곱 개의 위대한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파라다이스 상승 방법들 각각은 일곱 주(主) 영들 중 하나의 신성을 통과해 지난다; 그러한 접근 각각은, 창조체가 그 주(主) 영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초우주에서의 봉사에 따르는 결과 위에서 일어나는, 체험 접수성의 확대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일곱 체험들의 전체 총합은 최극자 하느님의 실체와 실재성에 대한 창조체 의식의 현재-알려진 한계들을 구성한다.

사람에게 유한의 하느님 발견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의 한계들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주의 미완성이다; 심지어는 모든 창조체들의—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미완성이 최극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 하느님은 하느님과-답음의 신성한 차원을 달성한 어떤 개별존재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최극자 하느님은 아주 먼 훗날에 완전의 우주적 달성을 통하여 모든 창조체들이 동시에 그를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한 창조체에 의해서도 결코 개인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 우주 시대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그를 개인적으로는 발견 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상승과 그에 따른 우주 생애가 모든 체험의 하느님의 우주 현존과 조화우주 활동에 대한 인식을 너희 의식 속에 점차적으로 창조할 것이다. 영의 열매들은 최극자가 인간 체험 안에서 실현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최극자의 본체이다

사람의 최극자에 대한 언젠가의 달성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영과 그의 융합에서 오는 결과이다. 유란시아인들에게 이 영은 우주 아버지의 조절자 현존이다; 그리고 신비 감시자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를 닮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하더라도 신성한 선물이 무한한 하느님의 본성을 유한한 창조체에게 계시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조절자들이 미래의 일곱 번째 단계 최극자에게 계시하는 것은 최극자 하느님의 신

117:6.13 (1289.6) 2. The time-space ascenders coming up from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the Supreme Creators make close approach to the Supreme in the traversal of Havona as a preliminary to the augmenting appreciation of the unity of the Paradise Trinity.

117:6.14 (1289.7) 3. The Havona natives acquire a comprehension of the Supreme through contacts with descending pilgrims from Paradise and ascending pilgrims from the seven superuniverses. Havona natives are inherently in position to harmonize the essentially different viewpoints of the citizens of the eternal Isle and the citizen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117:6.15 (1290.1) To evolutionary creatures there are seven great approaches to the Universal Father, and each of these Paradise ascensions passes through the divinity of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ach such approach is made possible by an enlargement of experience receptivity consequent upon the creature's having served in the superuniverse reflective of the nature of that Master Spirit. The sum total of these seven experiences constitutes the present-known limits of a creature's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and actuality of God the Supreme.

117:6.16 (1290.2) It is not only man's own limitations which prevent him from finding the finite God; it is also the incompleteness of the universe; even the incompleteness of all creatures — past, present, and future — makes the Supreme inaccessible. God the Father can be found by any individual who has attained the divine level of Godlikeness, but God the Supreme will never be personally discovered by any one creature until that far-distant time when, through the universal attainment of perfection, all creatures will simultaneously find him.

117:6.17 (1290.3) Despite the fact that you cannot, in this universe age, personally find him as you can and will find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nevertheless, the Paradise ascent and subsequent universe career will gradually create in your consciousness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e presence and the cosmic action of the God of all experience.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as he is realizable in human experience.

117:6.18 (1290.4) Man's sometime attainment of the Supreme is consequent upon his fusion with the spirit of Paradise Deity. With Urantians this spirit is the Adjuster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ough the Mystery Monitor is from the Father and like the Father, we doubt that even such a divine gift can achieve the impossible task of revealing the nature of the infinite God to a finite creature. We suspect that what the Adjusters will reveal to future seventh-stage finaliters will be the divinity and nature of God the Supreme. And this

성과 본성일 것이다. 그리고 무한자가 절대 존재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처럼 이 계시는 유한 창조체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최극자는 무한하지 않지만, 유한 창조체가 어느 때든지 실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무한성 전체를 포용할 것이다. 최극자보다 더 납득한다는 것은 유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체험적 창조들은 그들의 운명 실현에 상호 의존한다. 오직 체험적 실체만이 자아-억제적이고 자아-실존적이다. 하보나와 일곱 초우주들은 유한 달성의 최대 성취를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한 초월을 위하여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 언젠가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인간 상승자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은 실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인데 전체 우주 안에서의 체험 지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상승하는 어떤 한 존재라도, 그들에게 이 발견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최대한의 우주적 성숙에 모든 상승하는 자들이 도달하기 전에는, 최극자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는 상승하는 자기 아들들 각자를 조화우주 개별존재로 취급하신다. 마찬가지로 최극자도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체험적 자녀들을 단일 조화우주 전체로 취급한다.

사람은 자기 가슴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최극자를 탐색해 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체들이 최극자의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면, 그러면 그는 모든 창조체들에게 우주 실재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하게 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든 개인성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 자아-실현의 달성 그리고 우주에 두루 완전하게 된 평형의 달성은, 최극자의 달성과 같으며, 모든 유한 실체가 미완성 실존의 한계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증거 한다. 모든 유한 잠재들의 그러한 소진은, 다른 한편으로는, 최극자의 완성된 달성이 산출되고, 최극존재 자신의 완성된 진화적 실재화구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진이 바위를 가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극적으로 최극자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이 바닥에 있는 흙을 깎아내는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를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 너희는 우주들에서 너희의 영적 상승을 일으킨 위대한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최극자를 발견할 때, 너희는 파라다이스 진보의 너희 생애의 장엄한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revelation will be to a finite creature what the revelation of the Infinite would be to an absolute being.

117:6.19 (1290.5) The Supreme is not infinite, but he probably embraces all of infinity that a finite creature can ever really comprehend. To understand more than the Supreme is to be more than finite!

117:6.20 (1290.6) All experiential creations are interdependent in their realization of destiny. Only existential reality is self-contained and self-existent. Havona and the seven superuniverses require each other to achieve the maximum of finite attainment; likewise will they be sometime dependent on the future universes of outer space for finite transcendence.

117:6.21 (1290.7) A human ascender can find the Father; God is existential and therefore real, irrespective of the status of experience in the total universe. But no single ascender will ever find the Supreme until all ascenders have reached that maximum universe maturity which qualifies them simultaneously to participate in this discovery.

117:6.22 (1290.8) The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he treats each of his ascending sons as cosmic individuals. The Supreme likewise is no respecter of persons; he treats his experiential children as a single cosmic total.

117:6.23 (1290.9) Man can discover the Father in his heart, but he will have to search for the Supreme in the hearts of all other men; and when all creatures perfectly reveal the love of the Supreme, then will he become a universe actuality to all creatures. And that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 universes will be settled in light and life.

117:6.24 (1291.1) The attainment of perfected self-realization by all personalities plus the attainment of perfected equilibrium throughout the universes equals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and witnesses the liberation of all finite reality from the limitations of incomplete existence. Such an exhaustion of all finite potentials yields the completed attainment of the Supreme and may be otherwise defined as the completed evolutionary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himself.

117:6.25 (1291.2) Men do not find the Supreme suddenly and spectacularly as an earthquake tears chasms into the rocks, but they find him slowly and patiently as a river quietly wears away the soil beneath.

117:6.26 (1291.3) When you find the Father, you will find the great cause of your spiritual ascent in the universes; when you find the Supreme, you will discover the great result of your career of Paradise progression.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어떤 필사자도 조화우주를 통과하는 자신의 여행에 홀로 갈 수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의 모든 걸음마다 그의 옆에서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심을 알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그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 최극자의 현존이기 때문이다.

제 7 장. 최극자의 미래

모든 유한한 잠재들의 실현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모든 진화적 체험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최극자가 우주들 안에서 하나의 전능한 신(神) 현존으로서 최종적으로 창발하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 최극자는 영원한 아들이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분리된 별개로 개인성구현되면서, 파라다이스 섬이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확고하게 힘-구현되면서, 공동 행위자가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것처럼, 완벽하게 통합되면서, 존재하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재 우주 시대의 정점에 이를 때 최극위의 유한한 가능성들의 한계들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극자의 미래에 대한 전적으로 타당한 개념인 반면, 우리는 이 개념에 들어 있는 특정한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최극자의 분별불가적 감독자들은 자신의 완성된 진화 이전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신(神)구현화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감독자들은 지금도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우주들에 관련되는 최극위의 주권을 분별화하며 행사한다.

2. 최극자는 그가 우주 지위의 완벽한 실재성을 달성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궁극자 안에서 기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궁극자는 지금 현재도 분별화된 실체이며, 너희에게는 분별화된 궁극자 대관들의 실존이 이미 알려졌다.

3. 최극자는 우주적 창조체들에게 완벽하게 실재적은 아니지만, 그가 칠중 신(神)에 대하여 아주 현실적이라고 추론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며, 그것은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과 창조 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다.

그것은 시간이 초월시간과 결합하는 곳에, 유한의 상위 제약들에서, 순차에 대한 어떤 종류의 흐려짐과 혼합이 있을지 모른다. 최극자가 이들 초(超)시간 차원들에 자신의 우주 현존을 예측할지 모르며, 그 다음에 제한된 정도까지는 이 미래 예측을 구체적으로 투사된 미완성의 내재성으로서 창조된 차원들에게 되돌려 반영함으로써 미래 진화를 예측할지 모른다. 그러한 현상들은 모든 영원에 두루 사람의 미래 우주 달성의 진실 그대로의 예언인 생각 조절자로서 내주되어진, 인간 존재들의 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한이 초(超)유한과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117:6.27 (1291.4) But no God-knowing mortal can ever be lonely in his journey through the cosmos, for he knows that the Father walks beside him each step of the way, while the very way that he is traversing is the presence of the Supreme.

7. THE FUTURE OF THE SUPREME

117:7.1 (1291.5) The completed realization of all finite potentials equals the completion of the realization of all evolutionary experience. This suggests the final emergence of the Supreme as an almighty Deity presence in the universes. We believe that the Supreme, in this stage of development, will be as discretely personalized as is the Eternal Son, as concretely powerized as is the Isle of Paradise, as completely unified as is the Conjoint Actor, and all of this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finite possibilities of Supremacy at the culmination of the present universe age.

117:7.2 (1291.6) While this is an entirely proper concept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we would call attention to certain problems inherent in this concept:

117:7.3 (1291.7) 1. The Unqualified Supervisors of the Supreme could hardly be deitized at any stage prior to his completed evolution, and yet these same supervisors even now qualifiedly exercise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concerning the universes settled in light and life.

117:7.4 (1291.8) 2. The Supreme could hardly function in the Trinity Ultimate until he had attained complete actuality of universe status, and yet the Trinity Ultimate is even now a qualified reality, and you have been informed of the existence of the Qualified Vicegerents of the Ultimate.

117:7.5 (1291.9) 3. The Supreme is not completely real to universe creatures, but there are many reasons for deducing that he is quite real to the Sevenfold Deity, extending from the Universal Father on Paradise to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117:7.6 (1291.10) It may be that on the upper limits of the finite, where time conjoins transcended time, there is some sort of blurring and blending of sequence. It may be that the Supreme is able to forecast his universe presence onto these supertime levels and then to a limited degree anticipate future evolution by reflecting this future forecast back to the created levels as the Immanence of the Projected Incomplete. Such phenomena may be observed wherever finite makes contact with superfinite, as in the experiences of human beings who are indwelt by Thought Adjusters that are veritable predictions of

필사자 상승자들이 파라다이스의 최종의 무리단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맹세를 하며, 이러한 충성의 맹세를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유한 창조체 개인성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인, 최극자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그런 다음, 최종자 무리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기능하면서, 그들은 지역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사건 많은 시기까지 오로지 파라다이스 기원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들 완전하게 된 창조계들의 새로운 정부 조직들이 최극자의 창발 하는 주권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최종자 무리들이 그 때 그러한 행정부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그것은 최극자 하나님이 진화적인 최종의 무리단의 통합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일곱 무리단의 영원한 운명은 궁극적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최극자에 의해 지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극존재는 우주 현시활동을 위한 세 가지 초(超)유한 가능성들을 포함한다:

1. 첫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에서의 아(亞)절대 협력.
2. 두 번째 체험적 삼위일체에서의 공동절대 관계.
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서의 공동무한 참여,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족할만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최극자의 미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정들 중의 하나이지만, 빛과 생명의 지위 달성에 따른 현재의 대우주에 대한 그의 관계들에 관한 많은 추측들도 역시 있다.

초우주들의 현재의 목표는, 마치 하보나가 그러한 것처럼, 현재의 그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잠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완전성은 물리적 그리고 영적 달성과 관계된다. 심지어는 행정-관리적, 통치적 그리고 형제우애관계의 발전에도 관계된다. 앞으로 오는 시대들에서, 부조화와 잘못된 조절 그리고 부적응성의 가능성들이 결국에는 초우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순환회로들은 완전한 균형에 그리고 마음에 완벽한 복중에 있게 될 것이며, 반면에 개인성의 현존 안에서 영은 마음의 통치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먼 훗날에는 최극자의 영 개인과 전능자의 달성된 힘이 조화-협동된 발달을 이룩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 둘은 최극 마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통합될 때, 우주들에서의 완성된 실재성—모든 피조 지능체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고, 창조된 모든 에너지들에 의해 반응되고, 모든 영적 실존개체들 안에서 조화-협동되고, 모든 우주

man's future universe attainments throughout all eternity.

117:7.7 (1292.1) When mortal ascenders are admitted to the finaliter corps of Paradise, they take an oath to the Paradise Trinity, and in taking this oath of allegiance, they are thereby pledging eternal fidelity to God the Supreme, who is the Trinity as comprehended by all finite creature personalities. Subsequently, as the finaliter companies function throughout the evolving universes, they are solely amenable to the mandates of Paradise origin until the eventful times of the settling of local universes in light and life. As the new 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these perfected creations begin to be reflective of the emerging sovereignty of the Supreme, we observe that the outlying finaliter companies then acknowledge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such new governments. It appears that God the Supreme is evolving as the unifier of the evolutionary Corps of the Finality, bu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eternal destiny of these seven corps will be directed by the Supreme as a member of the Ultimate Trinity.

117:7.8 (1292.2) The Supreme Being contains three superfinite possibilities for universe manifestation:

117:7.9 (1292.3) 1. Absonite collaboration in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117:7.10 (1292.4) 2. Coabsolute relationship in the second experiential Trinity.

117:7.11 (1292.5) 3. Coinfinite participation in the Trinity of Trinities, but we have no satisfactory concept as to what this really means.

117:7.12 (1292.6) This is one of the generally accepted hypotheses of the future of the Supreme, but there are also many speculations concerning his relations to the present grand universe subsequent to its attainment of the status of light and life.

117:7.13 (1292.7) The present goal of the superuniverses is to become, as they are and within their potentials, perfect, even as is Havona. This perfection pertains to physical and spiritual attainment, even to administrative, governmental, and fraternal development. It is believed that, in the ages to come, the possibilities for disharmony, maladjustment, and misadaptation will be eventually exhausted in the superuniverses. The energy circuits will be in perfect balance and in complete subjugation to mind, while spirit, in the presence of personality, will have achieved the dominance of mind.

117:7.14 (1292.8) It is conjectured that at this far-distant time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and attained power of the Almighty will have achieved co-ordinate development, and that both, as unified in and by the Supreme Mind, will factualize as the Supreme Being, a completed actuality in the universes — an actuality which will be observable

적 개인성들에 의해 체험되게 될 실재성—최극존재로 사실화될 것이다.

이 개념은 대우주에서 최극자의 실재적인 주권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행정-관리자들이 그의 대리자로 계속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일곱 초우주들 사이에 있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경계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전체 대우주는 하나의 완전하게 된 전체로 기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극자는 오르본톤의 본부인 유버사에 개인적으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그곳으로부터 시간 창조계들의 관리-행정을 지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오직 추측일 뿐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의 신(神) 현존의 편재(遍在)가 우주들의 우주에 계속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최극존재의 개인성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분명히 접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시대의 초우주 시민들이 최극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하보나 원주민들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간의 현재 관계와 비슷한 어떤 것일 것이다.

이들 미래 시대들의 완전하게 된 대우주는 현재의 그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공간의 은하계들의 조직의 짜릿한 모험들은 없어질 것이며, 시간의 불확실한 세계들에 생명이 심어지고,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조화가, 잠재들로부터 아름다움이, 의미들로부터 진리가, 가치들로부터 선(善)이 진화할 것이다. 시간 우주들은 유한한 운명의 충만함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공간에서는 휴식, 진화적 완전을 위한 오랜 세월의 투쟁으로부터의 이완-휴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확실히, 그리고 반드시 궁극자 하느님의 창발하는 신(神)에 대한 수수께끼는, 그들의 투쟁하는 진화적 선조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향한 탐구에 의해 한 때 도전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정착된 우주들의 완전하게 된 이 시민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창조체 체험의 궁극에서 계시되는 새롭고도 더 높은 그러한 차원들에서 우주 아버지의 달성을 위한 매혹적인 아(亞)절대 탐구의 초월적 장관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 운명을 가리고 있는 그 장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by all creature intelligences, reacted to by all created energies, co-ordinated in all spiritual entities, and experienced by all universe personalities.

117:7.15 (1292.9) This concept implies the actu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the grand universe. It is altogether likely that the present Trinity administrators will continue as his vicegerents, but we believe that the present demarcations between the seven superuniverses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that the entire grand universe will function as a perfected whole.

117:7.16 (1292.10) It is possible that the Supreme may then be personally resident on Uversa, the headquarters of Orvonton, from which he will direct the administration of the time creations, but this is really only a conjecture. Certainly, though, the personality of the Supreme Being will be definitely contactable at some specific locality, although the ubiquity of his Deity presence will probably continue to permeate the universe of universes. What the relation of the superuniverse citizens of that age will be to the Supreme we do not know, but it may be something like the pres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avona natives and the Paradise Trinity.

117:7.17 (1293.1) The perfected grand universe of those future days will be vastly different from what it is at present. Gone will be the thrilling adventur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galaxies of space, the planting of life on the uncertain worlds of time, and the evolving of harmony out of chaos, beauty out of potentials, truth out of meanings, and goodness out of values. The time universes will have achieved the fulfillment of finite destiny! And perhaps for a space there will be rest, relaxation from the agelong struggle for evolutionary perfection. But not for long! Certainly, surely, and inexorably the enigma of the emerging Deity of God the Ultimate will challenge these perfected citizens of the settled universes just as their struggling evolutionary forebears were once challenged by the quest for God the Supreme. The curtain of cosmic destiny will draw back to reveal the transcendent grandeur of the alluring absonite quest for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on those new and higher levels revealed in the ultimate of creature experience.

117:7.18 (1293.2)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 118 편 최극과 궁극—시간과 공간

⇨ 117

유랜시아 책

119 ⇨

부 III. 유랜시아의 역사

제 118 편 최극과 궁극—시간과 공간

섹션

소개

- 제 1 장. 시간과 영원
- 제 2 장. 전재(全在)와 편재(遍在)
- 제 3 장. 시간-공간 관계
- 제 4 장. 1차 그리고 2차 원인
- 제 5 장. 전능과 동시양립 가능성
- 제 6 장. 전능과 만능
- 제 7 장. 전지(全知)와 숙명
- 제 8 장. 통제와 전반적-통제
- 제 9 장. 우주 기능구조
- 제 10 장. 섭리의 기능

소개

신(神)의 여러 본성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버지는 자아-실존적인 자아이다.
2. 아들은 공존하는 자아이다.
3. 영은 공동의-실존적 자아이다.
4. 최극자는 진화-체험적 자아이다.
5. 칠중자는 자아-분배적 신성(神性)이다.
6. 궁극자는 초월-체험적 자아이다.
7. 절대자는 실존적-체험적 자아이다.

최극자의 진화 달성에서 칠중 하느님이 필수 불가결한 반면, 최극자는 또한 궁극자의 생겨나는 창발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최극자와 궁극자

PAPER 118

SUPREME AND ULTIMATE — TIME AND SPACE

SECTIONS

Introduction

1. Time and Eternity
2. Omnipresence and Ubiquity
3. Time-Space Relationships
4. Primary and Secondary Causation
5. Omnipotence and Compossibility
6. Omnipotence and Omnificence
7. Omniscience and Predestination
8. Control and Overcontrol
9. Universe Mechanisms
10. Functions of Providence

INTRODUCTION

118:0.1 (1294.1) CONCERNING the several natures of Deity, it may be said:

118:0.2 (1294.2) 1. The Father is self-existent self.

118:0.3 (1294.3) 2. The Son is coexistent self.

118:0.4 (1294.4) 3. The Spirit is conjoint-existent self.

118:0.5 (1294.5) 4. The Supreme is evolutionary-experiential self.

118:0.6 (1294.6) 5. The Sevenfold is self-distributive divinity.

118:0.7 (1294.7) 6. The Ultimate is transcendental-experiential self.

118:0.8 (1294.8) 7. The Absolute is existential-experiential self.

118:0.9 (1294.9) While God the Sevenfold is indispensable to the evolutionary attainment of the Supreme, the Supreme is also indispensable to

의 이원적(二元的) 현존은 하위-절대이고 파생된 신(神)의 기본적인 관계적-연합을 구성한다, 이는 그들이 운명 달성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주(主)우주에서의 모든 창조적 성장의 시작들과 완성들을 연결시키는 체험적 다리를 구성한다.

창조적 성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만족하며, 확장에서 끝남이 없지만 과도기의 목표 달성에서의 그러한 개인성-만족의 순간들로 항상 매듭이 지워지고, 그러한 목표의 달성은 조화우주 성장과 우주탐구 그리고 신(神) 달성으로의 새로운 모험에 대한 활력 솟구침의 전주곡으로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한다.

수학의 권역은 질적인 한계들로 시달리지만 한편으로는, 유한한 마음이 명상을 통하여 지니는 무한에 대한 개념적 기초를 지니도록 제공한다. 숫자에는 양적인 한계가 없으며, 심지어는 유한한 마음의 이해에서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너희는 항상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는 그것이 무한에는 부족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숫자에서 이러한 합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아직도 언제나 하나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한한 연속들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합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합계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계) 일정 시간과 지위에 정해진 사람에게 목표 달성의 충만한 감미로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조만간에 바로 이 사람은 새롭고도 더 큰 목표들을 향해 열망하고 그리워한다,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험들은 시간의 충만함과 영원의 순환회로 속에서 언제까지나 다가올 것이다.

계속되는 각각의 우주 시대는 조화우주 성장의 그 다음 시대의 대기실과 같으며, 각각의 우주 신(新)시대에는 모든 이전 단계들에 대한 즉각적인 운명을 제공한다. 하보나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완전이지만 완전성-한계 되어진 창조이다; 진화적 조우주들로 확대되어 나가는 하보나 완전성은 조화우주 운명뿐만 아니라, 진화-이전 실존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을 발견한다.

제 1 장. 시간과 영원

조화우주에 대한 신(神)의 관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 사람의 조화우주 예비교육에 도움이 된다. 절대 신(神)이 본질적으로 영원하지만, 하느님들은 영원 안에서 하나의 체험으로 시간에 관계된다. 진화우주 안에서 영원은 현세적인 영속함—영속하고 있는 지금—이다.

필사 창조체의 개인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기법을 통하여 내주하는 영과의 자아-정체화구현에 의해 영원하게 될 수도 있다. 그

the eventual emergence of the Ultimate. And the dual presence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constitutes the basic association of subabsolute and derived Deity, for they are interdependently complementary in the attainment of destiny.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experiential bridge linking the beginnings and the completions of all creative growth in the master universe.

118:0.10 (1294.10) Creative growth is unending but ever satisfying, endless in extent but always punctuated by those personality-satisfying moments of transient goal attainment which serve so effectively as the mobilization preludes to new adventures in cosmic growth, universe exploration, and Deity attainment.

118:0.11 (1294.11) While the domain of mathematics is beset with qualitative limitations, it does provide the finite mind with a conceptual basis of contemplating infinity. There is no quantitative limitation to numbers, even in the comprehension of the finite mind. No matter how large the number conceived, you can always envisage one more being added. And also, you can comprehend that that is short of infinity, for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repeat this addition to number, still always one more can be added.

118:0.12 (1294.12) At the same time, the infinite series can be totaled at any given point, and this total (more properly, a subtotal) provides the fullness of the sweetness of goal attainment for a given person at a given time and status. But sooner or later, this same person begins to hunger and yearn for new and greater goals, and such adventures in growth will be forever forthcoming in the fullness of time and the cycles of eternity.

118:0.13 (1294.13) Each successive universe age is the antechamber of the following era of cosmic growth, and each universe epoch provides immediate destiny for all preceding stages. Havona, in and of itself, is a perfect, but perfection-limited, creation; Havona perfection, expanding out into the evolutionary superuniverses, finds not only cosmic destiny but also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of pre-evolutionary existence.

1. TIME AND ETERNITY

118:1.1 (1295.1) It is helpful to man's cosmic orientation to attain all possible comprehension of Deity's relation to the cosmos. While absolute Deity is eternal in nature, the Gods are related to time as an experience in eternity. In the evolutionary universes eternity is temporal everlastingness — the everlasting *now*.

118:1.2 (1295.2) The personality of the mortal creature may eternalize by self-identification with the indwelling spirit through the technique of choosing

러한 뜻에 대한 헌납은 목적의 영원-실체의 실현과 대등하다. 이것은 창조체의 목적이 순간들의 연속과 상관하여 고정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순간들의 연속은 창조체 목적에 관한 어떤 변화도 목격하지 못한다. 수백만 또는 수억만의 순간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창조체의 목적과 상관하여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과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속하는 봉사 안에서 사람 본성과 하나님의 영이 결코-끝남이 없는 연합의 영원 실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체의 선택이 더하여 결국 생겨난 것이다.

어떤 주어진 지능체의 시간 의식의 단위와 성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간 단위는 하루나 일 년 또는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의식적 자아가 삶의 상황들을 평가하는 것에 따르고, 그리고 착상하는 지능체가 현재적 실존의 사실들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것에 따르는, 기준이다.

체험과 지혜 그리고 판단은 필사자 체험에서 시간 단위가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인간 마음이 과거로 돌이켜 생각할 때, 그것은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과거 체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마음이 미래로 뻗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행동의 미래 의의(意義)를 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험과 지혜 두 가지를 그렇게 계산함으로써, 인간 의지는 현재 속에서 판단-결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로부터 태어난 행동 계획이 그렇게 실존이 되기 시작한다.

발전하는 자아의 성숙에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참된 의미를 밝게 조명하기 위하여 함께한다. 자아가 성숙하면 그것은 체험을 위하여 점점 더 먼 과거로 뻗어가며, 한편으로는 그것의 지혜 예측은 미지의 미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추구한다. 그리고 착상하는 자아가 과거와 미래 속으로 점점 더 멀리 확장할수록, 판단은 순간적인 현재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행동은 움직이는 현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그것은 과거-미래 의의(意義)의 측면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인내는 시간 단위들이 짧은 필사자들이 하는 것이다; 참된 성숙은 실제적인 납득에서 태어난 관용(寬容)에 의해 인내를 초월한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현재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체험에 기초를 둔 성숙함에서의 계획들은 것처럼 미래의 가치들을 증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재 안에서 존재하도록 나아온다.

미숙함에서의 시간 단위는 현재와 현재가 아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Such a consecration of will is tantamount to the realization of eternity—reality of purpose. This means that the purpose of the creature has become fixed with regard to the succession of moments; stated otherwise, that the succession of moments will witness no change in creature purpose. A million or a billion moments makes no difference. Number has ceased to have meaning with regard to the creature's purpose. Thus does creature choice plus God's choice eventuate in the eternal realities of the never-ending union of the spirit of God and the nature of man in the everlasting service of the children of God and of their Paradise Father.

118:1.3 (1295.3)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maturity and the unit of time consciousness in any given intellect. The time unit may be a day, a year, or a longer period, but inevitably it is the criterion by which the conscious self evaluates the circumstances of life, and by which the conceiving intellect measures and evaluates the facts of temporal existence.

118:1.4 (1295.4) Experience, wisdom, and judgment are the concomitants of the lengthening of the time unit in mortal experience. As the human mind reckons backward into the past, it is evaluating past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bringing it to bear on a present situation. As mind reaches out into the future, it is attempting to evaluate the future significance of possible action. And having thus reckoned with both experience and wisdom, the human will exercises judgment-decision in the present, and the plan of action thus born of the past and the future becomes existent.

118:1.5 (1295.5) In the maturity of the developing self, the past and future are brought together to illuminate the true meaning of the present. As the self matures, it reaches further and further back into the past for experience, while its wisdom forecasts seek to penetrate deeper and deeper into the unknown future. And as the conceiving self extends this reach ever further into both past and future, so does judgment become less and less dependent on the momentary present. In this way does decision-action begin to escape from the fetters of the moving present, while it begins to take on the aspects of past-future significance.

118:1.6 (1295.6) Patience is exercised by those mortals whose time units are short; true maturity transcends patience by a forbearance born of real understanding.

118:1.7 (1295.7) To become mature is to live more intensely in the present, at the same time escap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The plans of maturity, founded on past experience, are coming into being in the present in such manner as to enhance the values of the future.

118:1.8 (1295.8) The time unit of immaturity

닌 것—과거-미래—의 참된 관계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미-가치를 현재의 순간에 집중시킨다. 성숙함에서의 시간 단위는 과거-현재-미래의 조화-협동하는 관계가 너무나 잘 드러내도록 비례되어서 그로서 자아가 생긴 일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시작하고, 넓혀진 지평들의 파노라마의 전망으로부터 시간의 전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마도 시작됨이 없고, 끝남이 없는 영원의 연속체, 시간이라고 불리는 단편들을 비로소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다.

무한과 절대적 차원에서는, 현재의 순간이 과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포함한다. 스스로 이신 이는 스스로 이셨던 이였고 스스로 이실 이를 같이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성과 영원자에 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개념이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는, 잠재적인 실체는 실제적인 실체와 아주 동일한 의미이다. 오직 유한 차원에서만 그리고 시간에-묶인 창조체들에게만 그러한 광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절대로서, 하느님에게는, 영원한 결정을 내린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미 파라다이스 최종자이다.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를 통하여, 그렇다고 해서 인식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동물과 같은 상태에서부터 실존에서의 하느님과-닮음 차원으로 상승하는, 창조체의 문제들과 투쟁하는 모든 순간들을 알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 장. 전재(全在)와 편재(遍在)

신(神)의 편재(遍在)는 신성한 전재(全在)의 궁극위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최종자와 궁극자 그리고 절대자가, 그의 시간-공간 편재(遍在)와 그의 시간-공간-초월 전재(全在)를 그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우주적 및 절대적 현존으로 보완하고, 조화-협동시키며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우주 아버지와 의지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신(神) 편재(遍在)가 매우 종종 공간과 연관될 수 있는 반면, 반드시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사자 그리고 모론시아 상승자들로서 너희는 철중 하느님의 사명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을 점진적으로 식별하게 된다. 너희는 하보나를 통하여 최종자 하느님을 발견한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에서 그를 한 개인으로 발견하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최종자로서 마침내 그를 궁극자로 알고자 시도하게 될 것이다. 최종자들로서, 궁극자에 달성한 후에는 추구하려는 오직 하나의 과정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탐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어떤 최종자든지 그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최종의 그리고 궁극의 상승 마지막 이후로는 신(神) 절대자에 대한 달성의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최종자는, 비록 그들이 절대자 하느님의 발견에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느님, 거의 무한하고 우주

concentrates meaning-value into the present moment in such a way as to divorce the present of its true relationship to the not-present — the past-future. The time unit of maturity is proportioned so to reveal the co-ordinate relationship of past-present-future that the self begins to gain insight into the wholeness of events, begins to view the landscape of time from the panoramic perspective of broadened horizons, begins perhaps to suspect the nonbeginning, nonending eternal continuum, the fragments of which are called time.

118:1.9 (1296.1) On the levels of the infinite and the absolute the moment of the present contains all of the past as well as all of the future. I AM signifies also I WAS and I WILL BE. And this represents our best concept of eternity and the eternal.

118:1.10 (1296.2) On the absolute and eternal level, potential reality is just as meaningful as actual reality. Only on the finite level and to time-bound creatures does there appear to be such a vast difference. To God, as absolute, an ascending mortal who has made the eternal decision is already a Paradise finaliter. But the Universal Father, through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is not thus limited in awareness but can also know of, and participate in, every temporal struggle with the problems of the creature ascent from animallike to Godlike levels of existence.

2. OMNIPRESENCE AND UBIQUITY

118:2.1 (1296.3) The ubiquity of Deity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ultimacy of the divine omnipresence. It is volitional with the Universal Father that the Supreme, the Ultimate, and the Absolute should compensate, co-ordinate, and unify his time-space ubiquity and his time-space-transcended omnipresence with his timeless and spaceless universal and absolute presence. And you should remember that, while Deity ubiquity may be so often space associated, it is not necessarily time conditioned.

118:2.2 (1296.4) As mortal and morontia ascenders you progressively discern God through the ministry of God the Sevenfold. Through Havona you discover God the Supreme. On Paradise you find him as a person, and then as finaliters you will presently attempt to know him as Ultimate. Being finaliters, there would seem to be but one course to pursue after having attained the Ultimate, and that would be to begin the quest of the Absolute. No finaliter will be disturbed by the uncertainties of the attainment of the Deity Absolute since at the end of the supreme and ultimate ascensions he encountered God the Father. Such finaliters will no doubt believe that, even if they should be successful in finding God the Absolute, they would

적인 차원들에서 그 자신을 현시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인 바로 그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의심 없이 믿을 것이다. 절대적 하느님의 달성은 확실히 우주들의 시원(始原)적 조상이자 뿐만 아니라 개인성들의 최종적 아버지를 계시하게 될 것이다.

최극자 하느님이 신(神)의 시간-공간 전체(全在)의 실증은 아니지만, 그는 글자그대로 신성한 편재(遍在)의 현시활동이다. 창조자의 영적 현존과 창조의 물질적 현시활동 사이에는,—진화적 신(神)의 우주 창발—편재(遍在)가 되어가는 광대한 권역이 존재한다.

만일 최극자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언제까지나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神) 통치가 궁극자의 전반적-통제 아래에서 기능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한 사건에서 궁극자 하느님은, 전능 최극자의 관리-행정적 기능들에 관계되는 초(超)시간 그리고 초월된 공간에 대한 전반적-통제를 행사하는 초월 전능자(전능하신 자)로서 시간의 우주들에 현시를 시작할 것이다.

필사자 마음은, 우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만약에 대우주에서 행정-관리적 주권을 갖는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가 궁극자 하느님의 증강된 현시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외부 공간의 가정된 우주들에서의 궁극자 하느님의 창발이 절대자 하느님의 유사한 그리고 강화된 계시들에 따라 수반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제 3 장. 시간-공간 관계

신(神)은 오직 편재(遍在)에 의해서만 시간-공간 현시활동들을 유한 개념에 통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인 반면 공간은 연관된 지점들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는 분석에 의해 시간을 인식하고 합성에 의해 공간을 인식한다. 너희는 개인성의 집대성하는 통찰에 의해 이러한 두 가지 다른 개념들을 조화-협동하고 연관시킨다. 모든 동물세계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이 시간-공간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 동물에게 동작이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동작은 개인성 지위의 창조체에게만 가치를 나타낸다.

사물은 시간으로 조건을 갖추지만, 진리에는 시간이 없다. 너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너희가 더욱 더 진리일수록, 너희가 과거에 대한 것을 더욱 많이 납득 할수록 미래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하게 된다.

진리는 충격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모든 일시의 과도기적 파란으로부터 언제까지나 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다시는 죽거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며 항상 활기에 넘치고 잘 맞으며 순응하는 것이다.—눈부신 빛을 비추도록 살아있

only be discovering the same God, the Paradise Father manifesting himself on more nearly infinite and universal levels. Undoubtedly the attainment of God in absolute would reveal the Primal Ancestor of universes as well as the Final Father of personalities.

118:2.3 (1296.5) God the Supreme may not be a demonstration of the time-space omnipresence of Deity, but he is literally a manifestation of divine ubiquity. Between the spiritual presence of the Creator and the material manifestations of creation there exists a vast domain of the ubiquitous *becoming* — the universe emergence of evolutionary Deity.

118:2.4 (1296.6) If God the Supreme ever assumes direct control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we are confident such a Deity administration will function under the overcontrol of the Ultimate. In such an event God the Ultimate would begin to become manifest to the universes of time as the transcendental Almighty (the Omnipotent) exercising the overcontrol of supertime and transcended space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Almighty Supreme.

118:2.5 (1297.1) The mortal mind may ask, even as we do: If the evolution of God the Supreme to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e grand universe is attended by augmented manifestations of God the Ultimate, will a corresponding emergence of God the Ultimate in the postulated universes of outer space be attended by similar and enhanced revelations of God the Absolute? But we really do not know.

3. TIME-SPACE RELATIONSHIPS

118:3.1 (1297.2) Only by ubiquity could Deity unify time-space manifestations to the finite conception, for time is a succession of instants while space is a system of associated points. You do, after all, perceive time by analysis and space by synthesis. You co-ordinate and associate these two dissimilar conceptions by the integrating insight of personality. Of all the animal world only man possesses this time-space perceptibility. To an animal, motion has a meaning, but motion exhibits value only to a creature of personality status.

118:3.2 (1297.3) Things are time conditioned, but truth is timeless. The more truth you know, the more truth you are, the more of the past you can understand and of the future you can comprehend.

118:3.3 (1297.4) Truth is inconcussible — forever exempt from all transient vicissitudes, albeit never dead and formal, always vibrant and adaptable — radiantly alive. But when truth becomes linked with fact, then both time and space condition its

다. 그러나 진리가 사실과 연결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이 그 의미와 그리고 서로 관련된 그 가치들을 조건 짓게 한다. 사실과 결합된 진리의 그러한 실체들은 개념이 되며 그리고는 그에 따라 상대적 조화우주 실체들의 권역에 귀속된다.

창조자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유한하고 일시적인 창조체의 사실적 체험과의 연결은 최극자의 새롭게 창발 하는 가치로 결국 생겨난다. 최극자에 대한 개념은 영원히 변화하며 유한한 하부 세계와 신성하고 변함이 없는 상부 세계를 조화-협동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공간은 비(非)절대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절대인 것에 가깝게 된다. 공간은 분명히 절대적 궁극이다. 우리가 물질 차원에서 공간을 납득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물질 몸체들이 공간 속에 있는 반면 공간은 또한 바로 그 몸체들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공간에 대하여 많은 것이 절대적이지만, 그것은 공간이 절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너희가 공간이 결국 모든 물질 몸체들의 자산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공간 관계들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몸체가 공간 속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또한 그것의 자산을 같이 가지고 간다, 심지어는 그렇게 움직이는 몸체가 그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공간도 가지고 간다.

실체의 모든 원형들들은 물질 차원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영의 원형들들은 공간에 대한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대체하는 자리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공간에 대한 주된 수수께끼는 관념의 원형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 권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 수수께끼에 부딪히게 된다.—실체—어떤 관념의 원형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념 원형들이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비(非)물질은 항상 비(非)공간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도저히 안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제 4 장. 1차 그리고 2차 원인

많은 신학적 문제들과 필사 사람의 형이상학적 딜레마들은 신(神)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선정과 그에 따라 무한하고 절대인 속성들을 종속적 신성 그리고 진화적 신(神)에 배정한 것에서 기인된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참된 첫째원인이 정말로 존재하는 반면에, 또한 조화-협동적이고 종속적인 원인들, 연관하는 두 번째인 원인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원인들과 둘째 원인들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1차 원인들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원인성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요소의 유전과도 상관이 없는 기원적 결과들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2차 원인들

meanings and correlate its values. Such realities of truth wedded to fact become concepts and are accordingly relegated to the domain of relative cosmic realities.

118:3.4 (1297.5) The linking of the absolute and eternal truth of the Creator with the factual experience of the finite and temporal creature eventuates a new and emerging value of the Supreme. The concept of the Supreme is essential to the co-ordination of the divine and unchanging overworld with the finite and ever-changing underworld.

118:3.5 (1297.6) Space comes the nearest of all nonabsolute things to being absolute. Space is apparently absolutely ultimate. The real difficulty we have in understanding space on the material level is due to the fact that, while material bodies exist in space, space also exists in these same material bodies. While there is much about space that is absolute, that does not mean that space is absolute.

118:3.6 (1297.7) It may help to an understanding of space relationships if you would conjecture that, relatively speaking, space is after all a property of all material bodies. Hence, when a body moves through space, it also takes all its properties with it, even the space which is in and of such a moving body.

118:3.7 (1297.8) All patterns of reality occupy space on the material levels, but spirit patterns only exist in relation to space; they do not occupy or displace space, neither do they contain it. But to us the master riddle of space pertains to the pattern of an idea. When we enter the mind domain, we encounter many a puzzle. Does the pattern — the reality — of an idea occupy space? We really do not know, albeit we are sure that an idea pattern does not contain space. But it would hardly be safe to postulate that the immaterial is always nonspatial.

4. PRIMARY AND SECONDARY CAUSATION

118:4.1 (1298.1) Many of the theologic difficulties and the metaphysical dilemmas of mortal man are due to man's mislocation of Deity personality and consequent assignment of infinite and absolute attributes to subordinate Divinity and to evolutionary Deity. You must not forget that, while there is indeed a true First Cause, there are also a host of co-ordinate and subordinate causes, both associate and secondary causes.

118:4.2 (1298.2) The vital distinction between first causes and second causes is that first causes produce original effects which are free from inheritance of any factor derived from any

은 앞에 있었던 다른 원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반드시 나타내는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분별불가 절대자에 선천적인 순수하게 정적인 잠재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신(神) 절대자의 그 원인성들에 반응한다. 우주 절대자의 현존에서, 이들 원인적으로-잉태된 정적 잠재들은, 곧 특정한 초월적 대리자들의 영향에 대해 능동적으로서 반응하게 되며, 이 대리자들의 활동이 이들 활성화되는 잠재들을 발전을 위한 참된 우주 가능성들의 상태로, 성장을 위한 실재화되는 수용력으로 변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우주의 창조자들과 통제자들이 조화우주 진화의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것은 그러한 성숙되는 잠재에서 이루어진다.

실존적인 것들과 상관이 없는 원인성은 그것의 기본적인 구성에서 삼중적이다. 그것이 현재의 우주 시대에서 기능할 때 그리고 일곱 초우주들의 유한 차원과 관계하여,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1. 정적인 잠재들의 활성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의지적 명령들의 결과에 따른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작용하는, 신(神) 절대자의 활동에 의한 우주 절대자에서의 운명 확립.

2. 우주 수용능력들의 결국 생겨남. 이것은 차별화되지-않은 잠재들이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정의되는 계획들로 변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신(神)의 궁극위의 행동이며 초월적 차원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들은 전체 주(主)우주 의 미래 필요성들의 완전한 예상에 있다. 주(主)우주 고안건축가들이 우주의 신(神) 개념의 진실 그대로의 체현으로 존재하는 것은 잠재들의 분리와 관계가 있다. 그들의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주(主)우주의 개념 가장자리로 인하여, 확장성에서 공간에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계획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조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3. 우주 실재들의 창조와 진화. 최종 창조자들이 성숙되는 잠재들을 체험적 실재들로 시간 변환을 수행하도록 작용하는 것은 신(神) 궁극위의 수용력-산출 현존에 의해 충만케 되는 조화우주에 입각하고 있다. 주(主)우주 안에서, 잠재적 실체의 모든 실재화구현은 발전을 위한 궁극적 수용력에 의해 제한되며, 창발 하는 최종 단계들에서 시간-공간으로 조건 지워진다.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는 창조자 아들들은, 실재적으로는, 조화우주 관념으로 볼 때 변환하는 창조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 대한 창조자들과로서의 사람의 개념을 결코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antecedent causation. Secondary causes yield effects which invariably exhibit inheritance from other and preceding causation.

118:4.3 (1298.3) The purely static potentials inherent in the Unqualified Absolute are reactive to those causations of the Deity Absolute which are produced by the a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al Absolute these causative-impregnated static potentials forthwith become active and responsive to the influence of certain transcendental agencies whose actions result in the transmutation of these activated potentials to the status of true universe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actualized capacities for growth. It is upon such matured potentials that the creators and controllers of the grand universe enact the never-ending drama of cosmic evolution.

118:4.4 (1298.4) Causation, disregarding existentials, is threefold in its basic constitution. As it operates in this universe age and concerning the finite level of the seven superuniverses, it may be conceived as follows:

118:4.5 (1298.5) 1. *Activation of static potentials.* The establishment of destiny in the Universal Absolute by the actions of the Deity Absolute, operating in and upon the Unqualified Absolute and in consequence of the volitional mandates of the Paradise Trinity.

118:4.6 (1298.6) 2. *Eventuation of universe capacities.* This involves the transformation of undifferentiated potentials into segregated and defined plans. This is the act of the Ultimacy of Deity and of the manifold agencies of the transcendental level. Such acts are in perfect anticipation of the future needs of the entire master universe. It is in connection with the segregation of potentials that the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exist as the veritable embodiments of the Deity concept of the universes. Their plans appear to be ultimately space limited in extent by the concept periphery of the master universe, but as *plans* they are not otherwise conditioned by time or space.

118:4.7 (1298.7) 3. *Creation and evolution of universe actuals.* It is upon a cosmos impregnated by the capacity-producing presence of the Ultimacy of Deity that the Supreme Creators operate to effect the time transmutations of matured potentials into experiential actuals. Within the master universe all actualization of potential reality is limited by ultimate capacity for development and is time-space conditioned in the final stages of emergence. The Creator Sons going out from Paradise are, in actuality, *transformative* creators in the cosmic sense. But this in no manner invalidates man's concept of them as creators; from the finite viewpoint they certainly can and do create.

제 5 장. 전능과 동시양립 가능성

신(神)의 전능(全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공간 체제 속에서 그리고 필사 이해의 지적 견지의 견해로 볼 때, 비록 무한의 하느님이라도 직사각형의 원들을 만들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악(惡)을 창출할 수 없다. 하느님은 신성하지 못한 것을 행하실 수 없다. 철학적 용어들의 그러한 모순은 비(非)실존개체에 해당하며 무(無)가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성 특색은 하느님과 닮음과 그리고 하느님과-닮지-않음이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없다. 공가능성은 신성한 힘에 태생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능이 본성을 갖는 물체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들 그리고 존재들의 본성에 기원을 부여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된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영원성의 전경(全景)이 무한자의 뜻과 명령들에 응하여 전개될 때, 창조체들, 심지어는 사람들도 운명의 최종 실현에서 하느님의 동반자들이 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으로서의 삶에서도 사실이다; 사람과 하느님이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런 동반자 관계의 미래 가능성들에 어떤 제한도 부여될 수 없다. 영원한 진보에서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동반자라는 것을 사람이 실현하게 될 때, 그가 내주 하는 아버지 현존과 융합할 때, 그는 영적인 면에서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며 우주 아버지를 찾는 영원한 진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필사자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로 진행하며, 그 다음에는 가치로 옮겨간다. 창조자 의식은 사고 가치로부터 진행하여, 말-의미를 거쳐, 행동의 사실로 진행한다. 하느님은 실존적 무한에 선천적인 분별불가적 합일이라는 막다른 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항상 행동하여야만 한다. 신(神)은 모든 하위-신(神) 창조체들이 얻으려고 분투하는 원형을 우주, 완전 개인성들, 기원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을 항상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느님은 나중에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그 사람을 언제나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적인 아들관계와 그에 따른 형제신분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 아버지가 만드시 먼저 계셔야만 한다.

제 6 장. 전능과 만능

하느님은 정말로 전능(全能)하지만, 그는 만능(萬能)은 아니다—그는 되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지 않는다. 전능은 전능 최극자와 최극존재의 힘-잠재를 포용하지만, 최극자 하느님의 의지적 행동은 무한자 하느님의 개인적 행함이 아니다.

시원적인 신(神)의 만능(萬能)을 옹호하는 것은, 공동으로 작용하는 창조 보좌관들로 구성된 다양한 다른 계층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언급하자

5. OMNIPOTENCE AND COMPOSSIBILITY

118:5.1 (1299.1) The omnipotence of Deity does not imply the power to do the nondoable. Within the time-space frame and from the intellectual reference point of mortal comprehension, even the infinite God cannot create square circles or produce evil that is inherently good. God cannot do the ungodlike thing. Such a contradiction of philosophic terms is the equivalent of nonentity and implies that nothing is thus created. A personality trait cannot at the same time be Godlike and ungodlike. Compossibility is innate in divine power. And all of this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omnipotence not only creates things with a nature but also gives origin to the nature of all things and beings.

118:5.2 (1299.2) In the beginning the Father does all, but as the panorama of eternity unfolds in response to the will and mandates of the Infinite, it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that creatures, even men, are to become God's partners in the realization of finality of destiny. And this is true even in the life in the flesh; when man and God enter into partnership, no limitation can be placed upon the future possibilities of such a partnership. When man realizes that the Universal Father is his partner in eternal progression, when he fuses with the indwelling Father presence, he has, in spirit, broken the fetters of time and has already entered upon the progressions of eternity in the quest for the Universal Father.

118:5.3 (1299.3) Mortal consciousness proceeds from the fact, to the meaning, and then to the value. Creator consciousness proceeds from the thought-value, through the word-meaning, to the fact of action. Always must God act to break the deadlock of the unqualified unity inherent in existential infinity. Always must Deity provide the pattern universe, the perfect personalities, the original truth, beauty, and goodness for which all subdeity creations strive. Always must God first find man that man may later find God. Always must there be a Universal Father before there can ever be universal sonship and consequent universal brotherhood.

6. OMNIPOTENCE AND OMNIFICENCE

118:6.1 (1299.4) God is truly omnipotent, but he is not omnificent — he does not personally do all that is done. Omnipotence embraces the power-potential of the Almighty Supreme and the Supreme Being, but the volitional acts of God the Supreme are not the personal doings of God the Infinite.

118:6.2 (1299.5) To advocate the omnificence of primal Deity would be equal to disenfranchising well-nigh a million Creator Sons of Paradise, not to mention

않더라고, 거의 백만에 달하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자 아들들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체 우주에서 원인이 없는 원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원인들은 바로 이 하나의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광대한 우주에 두루 산재해 있는 무수한 신(神)의 자녀들의 자유의지성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

지역적인 틀에서, 의지작용은 마치 원인이 없는 원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독특하고 기원적이며 절대적 첫째원인들과의 관계를 이룩하는 유전적 요소들을 반드시 나타낸다.

모든 의지작용은 상대적이다.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스스로 이신 이만이 최종적 의지작용을 가진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영만이 공간으로 무제한적이고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의지작용의 특권들을 나타낸다. 필사 사람은 자유의지, 선택의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선택은 절대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 차원에서는 그리고 선택하는 개인성의 운명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최종적이다.

절대성이 결여된 모든 차원에서의 의지작용은 선택의 힘을 행사하는 바로 그 개인성을 구성하게 되는 제한들과 부딪친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람보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택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인간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주 상승의 항해에 착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신성한 의지가 이 시점에서 동시에 일치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거처가면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필사자 삶에서, 서로 다른 행위의 경로들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닫히며, 선택이 가능한 시간들 동안에 인간 개인성은 이들 많은 행동의 과정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정하고 있다. 현세적 의지작용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발현의 기회를 찾기까지 시간의 경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영적 의지작용은 시간 순차로부터 부분적인 탈출을 성취해 가면서 시간의 족쇄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것은 영적 의지작용이 하느님의 뜻과 자아-정체성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행동, 의지작용은 보다 높고 이전에 있었던 선택에 반응하여 실재화된 우주 틀 안에서 기능하여야만 한다. 인간 의지의 전체 범위는 하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밀히 유한하게 제한되었다: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선택할 때 그러한 선택은 초(超)유한적이다; 오직 영원만이 이 선택이 또한 초(超)아절대인지 밝힐 수 있다.

신(神) 전능을 인식하는 것은 조화우주 시민 신분의 너희의 체험 안에서 보장을 즐기는 것, 파라다이스를 향한 긴 여행에서 안전의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능성의 오류를 받아들이는

the innumerable hosts of various other orders of concurring creative assistants. There is but one uncaused Cause in the whole universe. All other causes are derivatives of this on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nd none of this philosophy does any violence to the free-willness of the myriads of the children of Deity scattered through a vast universe.

118:6.3 (1299.6) Within a local frame, volition may appear to function as an uncaused cause, but it unfailingly exhibits inheritance factors which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unique, original, and absolute First Causes.

118:6.4 (1299.7) All volition is relative. In the originating sense, only the Father-I AM possesses finality of volition; in the absolute sense, only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exhibit the prerogatives of volition unconditioned by time and unlimited by space. Mortal man is endowed with free will, the power of choice, and though such choosing is not absolute, nevertheless, it is relatively final on the finite level and concerning the destiny of the choosing personality.

118:6.5 (1300.1) Volition on any level short of the absolute encounters limitations which are constitutive in the very personality exercising the power of choice. Man cannot choose beyond the range of that which is choosable. He cannot, for instance, choose to be other than a human being except that he can elect to become more than a man; he can choose to embark upon the voyage of universe ascension, but this is because the human choice and the divine will happen to be coincident upon this point. And what a son desires and the Father wills will certainly come to pass.

118:6.6 (1300.2) In the mortal life, paths of differential conduct are continually opening and closing, and during the times when choice is possible the human personality is constantly deciding between these many courses of action. Temporal volition is linked to time, and it must await the passing of time to find opportunity for expression. Spiritual volition has begun to taste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time, having achieved partial escape from time sequence, and that is because spiritual volition is self-identifying with the will of God.

118:6.7 (1300.3) Volition, the act of choosing, must function within the universe frame which has actualized in response to higher and prior choosing. The entire range of human will is strictly finite-limited except in one particular: When man chooses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such a choice is superfinite; only eternity can disclose whether this choice is also superabsonite.

118:6.8 (1300.4) To recognize Deity omnipotence is to enjoy security in your experience of cosmic citizenship, to possess assurance of safety in the long journey to Paradise. But to accept the fallacy

것은 범신주의가 갖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포용하는 것이다.

of omniscience is to embrace the colossal error of pantheism.

제 7 장. 전지(全知)와宿命

7. OMNISCIENCE AND PREDESTINATION

대우주에서, 창조자 의지와 창조체 의지의 기능은 주(主)고안건축가들에 의해 수립된 가능성들에 따른 여러 제한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 제한의 예정은 이들 영역에서의 창조체 의지의 주권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모든 유한적 선택에 대한 충만한 승인—궁극적인 예지(豫知)가 유한 의지작용의 폐기를 뜻하지도 않는다. 성숙되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인간 존재는 보다 어린 연관-동료의 결정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지는 결정 그 자체의 자유와 순수성을 조금도 빼앗지 못한다. 하느님들은 미성숙한 의지 행동의 범위를 현명하게 제한시켜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러한 규정된 제한들 안에서 참된 의지이다.

118:7.1 (1300.5) The function of Creator will and creature will, in the grand universe, operates within the limi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ossibilities, established by the Master Architects. This foreordination of these maximum limits does not, however, in the least abridge the sovereignty of creature will within these boundaries. Neither does ultimate foreknowledge — full allowance for all finite choice — constitute an abrogation of finite volition. A mature and farseeing human being might be able to forecast the decision of some younger associate most accurately, but this foreknowledge takes nothing away from the freedom and genuineness of the decision itself. The Gods have wisely limited the range of the action of immature will, but it is true will, nonetheless, within these defined limits.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택에 대한 최극 상호관련성도 그러한 선택의 확실성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화우주의 미리 정해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실체의 체험적 실재화구현을 분담하는 역할들을 맡기로 선택하든지 또는 안하든지 하는 그 의지 존재들의 예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118:7.2 (1300.6) Even the supreme correlation of all past, present, and future choice does not invalidate the authenticity of such choosings. It rather indicates the foreordained trend of the cosmos and suggests foreknowledge of those volitional beings who may, or may not, elect to become contributory parts of the experiential actualization of all reality.

유한한 선택에서 실수는 시간에 묶여 있고 시간 안에 제한받는다. 그것은 시간 안에서만 그리고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현존 내에서만 오직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잘못된 선택은 시간 속에서 가능하며 (최극자의 미완성을 제외하고는) 실체와의 자유의지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우주 진보를 즐기 위하여 미성숙 창조체들에게 자질로서 부여되어야만 하는 선택의 특정한 범위를 나타낸다.

118:7.3 (1300.7) Error in finite choosing is time bound and time limited. It can exist only in time and *within* the evolving presence of the Supreme Being. Such mistaken choosing is time possible and indicates (besides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that certain range of choice with which immature creatures must be endowed in order to enjoy universe progression by making freewill contact with reality.

시간이 제약된 공간에서의 죄는 유한 의지의 현재적 해방—심지어 방종까지도—을 분명하게 증거 한다. 죄는 조화우주 시민 신분의 최극 책무와 의무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개인성의 상대적 주권 의지의 자유로 인하여 어지러워하는 미성숙을 나타낸다.

118:7.4 (1301.1) Sin in time-conditioned space clearly proves the temporal liberty — even license — of the finite will. Sin depicts immaturity dazzled by the freedom of the relatively sovereign will of personality while failing to perceive the supreme obligations and duties of cosmic citizenship.

유한 권역에서의 사악한 불의는 하느님-미(未)정체성확인 자아신분의 덧없는 실체를 계시한다. 창조체가 하느님 정체성 확인되어 가면서 오직 그에 따라, 우주들 안에서 그는 진정으로 실체가 된다. 유한한 개인성은 자아-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이라는 초우주 경기장에서 그것은 운명을 자아-결정한다.

118:7.5 (1301.2) Iniquity in the finite domains reveals the transient reality of all God-unidentified selfhood. Only as a creature becomes God identified, does he become truly real in the universes. Finite personality is not self-created, but in the superuniverse arena of choice it does self-determine destiny.

생명의 증여는 물질-에너지 체계들로 하여금 자아-영속과 자아-증식 그리고 자아-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성의 증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자아-결정과 자아-진화 그리고 신(神)의 융합영과 함께 자아-정체화구현이라는 한층 더해진 특

118:7.6 (1301.3) The bestowal of life renders material-energy systems capable of self-perpetuation, self-propagation, and self-adaptation.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mparts to living organisms the further prerogatives of self-determination, self-evolution,

권들을 부여한다.

하위-개인적인 살아있는 것들은 에너지-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마음을 나타내며, 첫째로는 물리 통제자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보조 마음-영들에 따른 것이다. 개인성 자질은 아버지로부터 오며 살아있는 체계에게 선택이라는 독특한 특권들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성이 실제 정체화구현의 의지적 선택을 행사하는 특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진화하는 개인성은 자아-혼란과 자아-분열 그리고 자아-파괴에 이르는 선택의 가능성 역시 갖고 있어야만 한다. 진화하는 개인성이 유한 의지의 이행에서 정말로 자유롭다면 우주적 자아-파멸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존의 보다 낮은 차원들에 두루 개인성 선택의 제한들을 좁게 만듦으로써 증가된 안정이 있다. 우주들이 상승됨에 따라 선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상승하는 개인성이 신성(神性)의 지위를 달성하고, 우주의 목적들에 대한 헌신의 최극위를 성취하며, 우주-지혜 달성의 완성을 이루고, 하느님의 뜻과 방법에 창조체 정체화구현의 최종이 이룩되면, 선택은 결국에는 신성한 자유에 접근하게 된다.

제 8 장. 통제와 전반적-통제

시간-공간 창조계에서, 자유의지는 금지들, 제약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질-생명 진화는 처음에는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활성화되며, (개인성의 중여 이후에는) 그것이 영의 지도를 받는다.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에서의 유기체 진화는 생명운반자들의 기원적인 물리적-생명 이식들의 잠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한된다.

필사 사람은 기계, 살아있는 기능구조이다; 그의 뿌리는 정말로 에너지의 물리적 세계에 있다. 인간의 여러 반응들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이다; 삶의 대부분은 기계와 비슷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능구조, 사람은 기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는 마음이 자질로서 부여되어 있고 영이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물질적인 삶 동안 그의 실존의 화학적 그리고 전기적 구조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충동들의 이행에 인간 마음을 헌신하는 과정에 따라 체험에서의 안내하는 지혜에 이 물리적-생명 기능구조를 종속시키는 방법을 점점 더 배울 수 있다.

의지의 기능을 영은 해방시키고 기능구조는 제한한다. 기능구조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영과 미(未)-정체성확인된 불완전한 선택은 위험하며 불안정하다. 기계적인 통치는 진보의 희생으로 안정을 보장한다; 영 동맹은 선택을 물리적 차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증강된 우주 통찰력과 증가된 조화우주 이해력에 의해 산출되는 신성한

and self-identification with a fusion spirit of Deity.

118:7.7 (1301.4) Subpersonal living things indicate mind activating energy-matter, first as physical controllers, and then as adjutant mind-spirits. Personality endowment comes from the Father and imparts unique prerogatives of choice to the living system. But if personality has the prerogative of exercising volitional choice of reality identification, and if this is a true and free choice, then must evolving personality also have the possible choice of becoming self-confusing, self-disrupting, and self-destroying. The possibility of cosmic self-destruction cannot be avoided if the evolving personality is to be truly free in the exercise of finite will.

118:7.8 (1301.5) Therefore is there increased safety in narrowing the limits of personality choice throughout the lower levels of existence. Choice becomes increasingly liberated as the universes are ascended; choice eventually approximates divine freedom when the ascending personality achieves divinity of status, supremacy of consecration to the purposes of the universe, completion of cosmic-wisdom attainment, and finality of creature identification with the will and the way of God.

8. CONTROL AND OVERCONTROL

118:8.1 (1301.6) In the time-space creations, free will is hedged about with restraints, with limitations. Material-life evolution is first mechanical, then mind activated, and (after the bestowal of personality) it may become spirit directed. Organic evolution on the inhabited worlds is physically limited by the potentials of the original physical-life implantations of the Life Carriers.

118:8.2 (1301.7) Mortal man is a machine, a living mechanism; his roots are truly in the physical world of energy. Many human reactions are mechanical in nature; much of life is machinelike. But man, a mechanism, is much more than a machine; he is mind endowed and spirit indwelt; and though he can never throughout his material life escape the chemical and electrical mechanics of his existence, he can increasingly learn how to subordinate this physical-life machine to the directive wisdom of experience by the process of consecrating the human mind to the execution of the spiritual urges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18:8.3 (1301.8) The spirit liberates, and the mechanism limits, the function of will. Imperfect choice, uncontrolled by mechanism, unidentified with spirit, is dangerous and unstable. Mechanical dominance insures stability at the expense of progress; spirit alliance liberates choice from the physical level and at the same time assures the

안정을 보장한다.

창조체들을 괴롭히는 커다란 위험은, 생명 기능구조의 속박들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함에서, 그가 영과의 조화로운 연락 작업을 이루는 것에 의하여 이 안정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실패하는 데에 있다. 창조체의 선택은, 기계적 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되면, 더욱 위대한 영 정체화구현과는 독립적으로 더욱 나아가는 자아-해방을 시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진화의 전체 원리가 원시인이 어떤 커다란 자아-절제의 자질을 갖고 거주민이 사는 세상들에 나타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진화를 계획하였던 동일한 그 창조적 설계는 그러한 미개한 창조체들의 반(半)영적 선택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적 속박들, 굶주림과 두려움을 마찬가지로 제공한다. 사람 마음이 점점 더 어려운 장애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고 넘음에 따라, 이 동일한 창조의 설계 역시 애써서 획득된 체험적 지혜의 종족 유산(遺産)의 느린 축적을 준비한다.—다른 말로 하면, 감소되는 외부적 금지들과 증강되는 내부적 금지 사이의 균형 유지를 준비한다.

진화에서의, 인간 문화적 진보에서의 완만함은 진보의 위험한 속도를 저지하도록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제동 장치—물질적 타성—의 효력을 입증한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인간 활동을 바로-가깝게 에워싸는 장애물들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탈출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인 것들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킨다. 왜냐하면 문화가 너무 빠르게 앞지르게 되면, 물질적 성취가 경배-지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되면, 문명 그 자체 내에 쇠퇴의 씨앗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체험적 지혜의 신속한 증강에 의해 보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간 사회들은 높지만 미성숙의 달성 차원들로부터 움츠러들 것이고, 지혜의 공백 기간인 “암흑기”가 형성되어 자아-해방과 자아-통제 사이의 불균형의 냉혹한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칼리가스티아의 사악한 불의는 진보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시간 통치기 역할을 건너 뛴 것이었다—억제하는 장애물들, 그 당시 필사자 마음들이 아직 체험적으로 타고 넘어가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무턱대고 파괴한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의 부분적인 축약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 행동은 초월되는 금지의 장벽 대신에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혜의 씨앗들을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루시퍼는 이와 동일하게 그 지역체계에서 특정한 해방의 미성숙한 달성의 억제를 위해 작용하는 시간 통치를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빛과 생명

divine stability produced by augmented universe insight and increased cosmic comprehension.

118:8.4 (1302.1) The great danger that besets the creature is that, in achieving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the life mechanism, he will fail to compensate this loss of stability by effecting a harmonious working liaison with spirit. Creature choice, when relatively liberated from mechanical stability, may attempt further self-liberation independent of greater spirit identification.

118:8.5 (1302.2) The whole principle of biologic evolution makes it impossible for primitive man to appear on the inhabited worlds with any large endowment of self-restraint. Therefore does the same creative design which purposed evolution likewise provide those external restraints of time and space, hunger and fear, which effectively circumscribe the subspiritual choice range of such uncultured creatures. As man's mind successfully overstrides increasingly difficult barriers, this same creative design has also provided for the slow accumulation of the racial heritage of painfully garnered experiential wisdom — in other words, for the maintenance of a balance between the diminishing external restraints and the augmenting internal restraints.

118:8.6 (1302.3) The slowness of evolution, of human cultural progress, testifies to the effectiveness of that brake — material inertia — which so efficiently operates to retard dangerous velocities of progress. Thus does time itself cushion and distribute the otherwise lethal results of premature escape from the next-encompassing barriers to human action. For when culture advances overfast, when material achievement outruns the evolution of worship-wisdom, then does civilization contain within itself the seeds of retrogression; and unless buttressed by the swift augmentation of experiential wisdom, such human societies will recede from high but premature levels of attainment, and the “dark ages” of the interregnum of wisdom will bear witness to the inexorable restoration of the imbalance between self-liberty and self-control.

118:8.7 (1302.4) The iniquity of Caligastia was the bypassing of the time governor of progressive human liberation — the gratuitous destruction of restraining barriers, barriers which the mortal minds of those times had not experientially overridden.

118:8.8 (1302.5) That mind which can effect a partial abridgment of time and space, by this very act proves itself possessed of the seeds of wisdom which can effectively serve in lieu of the transcended barrier of restraint.

118:8.9 (1302.6) Lucifer similarly sought to disrupt the time governor operating in restraint of the premature attainment of certain liberties in the

에 안정된 지역 체계는, 바로 그 영역의 안정되기 이전 시대들에서 있을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많은 기법들의 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점들과 통찰력들을 이미 체계적으로 성취하였다.

사람이 두려움의 족쇄들을 떨쳐버림에 따라, 자신의 기계들로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고, 그들의 기록들로 세대들과 시대들을 연결시킴에 따라, 그는 확장하는 인간 지혜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 새롭고 자발적으로 취한 억제로 모든 각각의 초월되는 억제를 대체해야만 한다. 이들 자아에-부과하는 억제들은 인간 문명의 모든 요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동시에 가장 희박한 것—공의의 개념이자 형제신분의 이상—이다. 심지어 사람은, 하느님이 사람을 일치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그가 감히 착상하는 그러한 대우와 똑같은 것으로 그가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그런 대우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작정할 때 한편으로는 영적 형제신분의 시작됨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렇게 참으로 자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용기를 낼 때 자비라는 억제의 옷으로 비로소 스스로 자격을 갖춘다.

자동적인 우주 반응은 안정적이며 어떤 형태로든 조화우주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느님을 알고 그의 뜻을 하고자 하는 개인성, 영의 통찰력을 소유한 개인성은 신성하게 안정적이며 영원히 실존한다. 사람의 위대한 우주 모험은 기계적인 정적인 안정으로부터 영적인 동적인 신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각각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성 결정들의 기세와 불변성에 의해 이 변환을 성취한다.

제 9 장. 우주 기능구조

시간과 공간은 주(主)우주 의 결합되어진 기능구조이다. 그것들은 유한한 창조체들이 무한자와 함께 조화우주 안에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유한 창조체들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절대차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수단들은, 그것들이 없이는 필사자가 존재할 수 없는데, 유한한 활동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한정시킨다. 그것들이 없이는 어떤 창조체도 활동할 수 없으며, 한편 모든 창조체의 활동은 그것에 의하여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다.

보다 높은 마음들에 의해 생성된 기능구조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근원들을 해방시키려고 기능한다, 그러나 어떤 정도들은 모든 종속의 지능체들의 활동을 일정불변하게 제한한다. 이 제한이 우주들의 창조체들에게 우주들의 기능구조들로서 확실히 보이게 된다. 사람은 족쇄 풀린 자유의 지를 가진 것이 아니다; 선택의 그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환경 안에서 그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주권을 갖는다.

local system. A local system settled in light and life has experientially achieved those viewpoints and insights which make feasible the operation of many techniques that would be disruptive and destructive in the presettled eras of that very realm.

118:8.10 (1302.7) As man shakes off the shackles of fear, as he bridges continents and oceans with his machines, generations and centuries with his records, he must substitute for each transcended restraint a new and voluntarily assumed restraint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dictates of expanding human wisdom. These self-imposed restraints are at once the most powerful and the most tenuous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ivilization — concepts of justice and ideals of brotherhood. Man even qualifies himself for the restraining garments of mercy when he dares to love his fellow men, while he achieves the beginnings of spiritual brotherhood when he elects to mete out to them that treatment which he himself would be accorded, even that treatment which he conceives that God would accord them.

118:8.11 (1303.1) An automatic universe reaction is stable and, in some form, continuing in the cosmos. A personality who knows God and desires to do his will, who has spirit insight, is divinely stable and eternally existent. Man's great universe adventure consists in the transit of his mortal mind from the stability of mechanical statics to the divinity of spiritual dynamics, and he achieves this transformation by the force and constancy of his own personality decisions, in each of life's situations declaring, "It is my will that your will be done."

9. UNIVERSE MECHANISMS

118:9.1 (1303.2) Time and space are a conjoined mechanism of the master universe. They are the devices whereby finite creatures are enabled to coexist in the cosmos with the Infinite. Finite creatures are effectively insulated from the absolute levels by time and space. But these insulating media, without which no mortal could exist, operate directly to limit the range of finite action. Without them no creature could act, but by them the acts of every creature are definitely limited.

118:9.2 (1303.3) Mechanisms produced by higher minds function to liberate their creative sources but to some degree unvaryingly limit the action of all subordinate intelligences. To the creatures of the universes this limitation becomes apparent as the mechanism of the universes. Man does not have unfettered free will; there are limits to his range of choice, but within the radius of this choice his will is relatively sovereign.

필사 개인성의 생명 기능구조, 인간의 몸체는 초(超)필사적 창조 계획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자신에 의해 결코 완전하게 통제될 수가 없다. 오직 상승하는 사람이, 융합된 조절자와 연락하여, 개인성 표현을 위한 장치를 자-창조할 때에만, 그는 거기에서 완전한 통제를 성취할 수 있다.

대우주는 기능구조일 뿐만 아니라,—최극 마음에 의해 활성화되고, 최극 영과 조화-협동하며, 힘과 개인성 통일의 최대 차원들에서 최극존재로서 표현을 하는 살아있는 기능구조, 기계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그러나 유한 창조의 기능구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고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기능구조들은 조화우주 잠재에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창조적 마음의 산물이다. 기능구조들은 창조자 생각의 고정된 결정체들이다. 그것들은 그들을 기원시킨 의지작용 개념에 항상 진실하게 기능한다. 그러나 어떤 기능구조의 목적성은 그것의 기원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의 기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능구조들은 신(神)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역학 속에서 신(神)이 영원한 표현의 한 위상을 성취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우주 기능구조들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절대적인 뜻에 응답하여 실존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것들은 무한자의 계획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영원히 기능할 것이다; 바로 그것들이 그 계획의 비(非)의지적인 원형들이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의 기능구조가 영원한 아들의 개인성과 어떻게 상관관계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불가자의 이론적 기능구조와 신(神) 절대자의 잠재적 개인과 상관관계된 우주 절대자의 활동에 관계되는 이론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최극 신(神)과 궁극 신(神)에서 우리는 어떤 미(未)개인적 위상들이 그들의 의지적 상대자와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관찰하며, 그래서 원형들과 개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의 표현의 합일 속에서 연합을 발견하였다. 만일 미래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지역우주들의 창조자 아들들과 창조 영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들에서 창조적 연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성한 본성들의 병합된 표현으로서 그들의 합일이 무엇을 창조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궁극 신(神), 새로운 유형의 초(超)-행정-관리자의 현시활동작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존재들은, 개인성의 고유한 특권들, 개인적 창조자의 연합존재, 미(未)개인적 창조 영, 필사-창조체 체험, 그리고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진보적 개인성구현을 포용할 것이다.

118:9.3 (1303.4) The life mechanism of the mortal personality, the human body, is the product of supermortal creative design; therefore it can never be perfectly controlled by man himself. Only when ascending man, in liaison with the fused Adjuster, self-creates the mechanism for personality expression, will he achieve perfected control thereof.

118:9.4 (1303.5) The grand universe is mechanism as well as organism, mechanical and living — a living mechanism activated by a Supreme Mind, co-ordinating with a Supreme Spirit, and finding expression on maximum levels of power and personality unification as the Supreme Being. But to deny the mechanism of the finite creation is to deny fact and to disregard reality.

118:9.5 (1303.6) Mechanisms are the products of mind, creative mind acting on and in cosmic potentials. Mechanisms are the fixed crystallizations of Creator thought, and they ever function true to the volitional concept that gave them origin. But the purposiveness of any mechanism is in its origin, not in its function.

118:9.6 (1303.7) These mechanisms should not be thought of as limiting the action of Deity; rather is it true that in these very mechanics Deity has achieved one phase of eternal expression. The basic universe mechanisms have come into existence in response to the absolute will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they will therefore eternally function in perfect harmony with the plan of the Infinite; they are, indeed, the nonvolitional patterns of that very plan.

118:9.7 (1303.8) We understand something of how the mechanism of Paradise is correlated with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his is the function of the Conjoint Actor. And we have theories regarding the operations of the Universal Absolut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mechanisms of the Unqualified and the potential person of the Deity Absolute. But in the evolving Deities of Supreme and Ultimate we observe that certain impersonal phases are being actually united with their volitional counterparts, and thus there is evolv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pattern and person.

118:9.8 (1304.1) In the eternity of the past the Father and the Son found union in the unity of the expression of the Infinite Spirit. If, in the eternity of the future, the Creator Sons and the Creative Spirits of the local universes of time and space should attain creative union in the realms of outer space, what would their unity create as the combined expression of their divine natures? It may well be that we are to witness a hitherto unrevealed manifestation of Ultimate Deity, a new type of superadministrator. Such beings would embrace unique prerogatives of personality, being the union of personal Creator, impersonal Creative Spirit, mortal-creature experience, and

그러한 존재들은 그들이 포용할 개인적 그리고 미(未)개인적 실체에서 궁극일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창조자와 창조체의 체험들을 병합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외부 공간의 창조계들에서 기능하는 삼위일체들의 그러한 제3 개인들 속성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들은 무한한 영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창조자 아버지들과 그들의 창조자 어머니에게 같은 관계의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이다.

최극자 하느님은 모든 우주적 체험의 개인성 구현이고, 모든 유한 진화의 초점화구현이며, 모든 창조 실체의 극대화이고, 조화우주 지혜의 성취이며, 시간 속의 은하계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들이 형체로 체현된 것이며, 조화우주 마음 의미들의 진리, 최극 영 가치들의 선(善)이다. 그리고 최극자 하느님은, 영원한 미래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유한한 다양성들을, 심지어 그들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절대적 차원에 현재 실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의미 넘치는 하나의 전체로 합성할 것이다.

제 10 장. 섭리의 기능

섭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미리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바로 조화우주 횡포가 될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대적인 선택의 힘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녀 응석을 받아주어 버릇없이 만드는 근시안적인 애정도 신성한 사랑은 될 수 없다.

삼위일체로서—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전능 최극자가 아니지만, 전능자의 최극위는 그들 없이는 결코 현시될 수 없다. 최극자의 성장은 실체성의 절대자들 위에 중심을 두고 있고 잠재성의 절대자들 위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 최극자의 기능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기능들과 관계되어 있다.

최극존재에서, 우주 활동의 모든 위상들이 이 체험적 신(神)의 개인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再)연합하고 있음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의 하느님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을 현재 알려지고 조직된 대우주에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진화하는 최극존재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부분적 초상화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최극 신(神)이 대우주에서 유한 물질과 마음과 영의 개인성 합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느님들은 속성들을 갖지만 삼위일체는 기능들을 가지며, 그리고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섭리는 하나의 기능, 우주들의 우주의 어떤-개인적-아닌 전반적-통제의 복합체 이다, 그것은 전능자의 힘 안에서 합성하고 있는 철중 하느님의

progressive personalization of the Divine Minister. Such beings could be ultimate in that they would embrace personal and impersonal reality, while they would combine the experiences of Creator and creature. Whatever the attributes of such third persons of these postulated functioning trinities of the creations of outer space, they will sustain something of the same relation to their Creator Fathers and their Creative Mothers that the Infinite Spirit does to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118:9.9 (1304.2) God the Supreme is the personalization of all universe experience, the focalization of all finite evolution, the maximization of all creature reality, the consummation of cosmic wisdom, the embodiment of the harmonious beauties of the galaxies of time, the truth of cosmic mind meanings, and the goodness of supreme spirit values. And God the Supreme will, in the eternal future, synthesize these manifold finite diversities into one experientially meaningful whole, even as they are now existentially united on absolute levels in the Paradise Trinity.

10. FUNCTIONS OF PROVIDENCE

118:10.1 (1304.3) Providence does not mean that God has decided all things for us and in advance. God loves us too much to do that, for that would be nothing short of cosmic tyranny. Man does have relative powers of choice. Neither is the divine love that shortsighted affection which would pamper and spoil the children of men.

118:10.2 (1304.4) The Father, Son, and Spirit — as the Trinity — are not the Almighty Supreme, but the supremacy of the Almighty can never be manifest without them. The *growth* of the Almighty is centered on the Absolutes of actuality and predicated on the Absolutes of potentiality. But the *functions* of the Almighty Supreme are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118:10.3 (1304.5) It would appear that, in the Supreme Being, all phases of universe activity are being partially reunited by the personality of this experiential Deity. When, therefore, we desire to view the Trinity as one God, and if we limit this concept to the present known and organized grand universe, we discover that the evolving Supreme Being is the partial portraitur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we further find that this Supreme Deity is evolving as the personality synthesis of finite matter, mind, and spirit in the grand universe.

118:10.4 (1304.6) The Gods have attributes but the Trinity has functions, and like the Trinity, providence is a function, the composite of the other-than-personal overcontrol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extending from the evolutionary levels

진화적 차원들로부터 신(神)의 궁극위의 초월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있다.

하느님은 각각의 창조체를 자녀로 사랑하며, 그 사랑은 모든 시간과 영원에 두루 각 창조체를 보호한다. 섭리는 전체와 관련하여 기능하며 그러한 기능이 전체와 관련되어 있듯이 모든 창조체의 기능을 다룬다. 모든 존재에 관한 섭리 개입은 어떤 전체의 진화적 성장에 관계하는, 그 존재의 기능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한 전체는 종족 전체,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또는 심지어 보다 높은 전체일 수도 있다. 섭리 개입을 초래하는 것은 창조체의 기능의 중요성이지, 창조체 개인의 중요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에 일치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 조화우주의 사건들의 흐름 속에 어느 때든지 아버지로서의 손을 대신다.

그러나 사람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며, 우연한 여러 상황들이 어찌다 옆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공간의 에너지의, 시간의 운동들의, 마음의 생각들의, 성격의 이상들의, 영적 본성들의 욕구들의, 그리고 진화하는 개인성들의 목적을 가진 의지적 행동들의, 참된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실제화하는, 우주 실존의 유한 영역에서 실제로 창발하는 섭리는 있다. 물질 영역들의 환경들은 최극자와 궁극자의 연동하는 현존들 안에서 최종 유한 집대성활동을 발견한다.

대우주의 기능구조들이 마음의 전반적-통제를 통하여 최종 정밀의 점까지 완전해짐에 따라, 그리고 창조체 마음이 영과의 완전해진 집대성활동을 지나 신성 달성의 완전을 향해 상승함에 따라, 그리고 그 결과로 최극자가 이러한 모든 우주 현상들의 실제적 통합자로서 창발 함에 따라, 섭리는 그렇게 점점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진화 세계들에서 이따금씩 만연되고 있는 놀랄만한 우연한 여건들에서의 어떤 것들은 점진적으로 창발하는 최극자의 현존, 그의 미래 우주 활동들을 미리 맛보는 것 때문일 수 있다. 필사자가 섭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의 판단은 삶의 환경들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를 받는다. 필사자가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아마도 불운이 될 것이다; 노력 없이 얻는 휴양을 베풀어주고, 공을 들이지 않고 얻는 부유함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행운의 미소가 인간 고통에서의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고통 받고 있는 필사자에게 시련이 겹치는, 심술 굳은 운명의 외견상 냉혹함이 실체에서는, 미성숙한 개인성의 물렁한 쇠를 실제적 성격의 담금질된 쇠로 변질시키는, 담금질하는 불길

of the Sevenfold synthesizing in the power of the Almighty on up through the transcendental realms of the Ultimacy of Deity.

118:10.5 (1304.7) God loves each creature as a child, and that love overshadows each creature throughout all time and eternity. Providence functions with regard to the total and deals with the function of any creature as such function is related to the total. Providential intervention with regard to any being is indicative of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that being as concerns the evolutionary growth of some total; such total may be the total race, the total nation, the total planet, or even a higher total. It is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the creature that occasions providential intervention, not the importance of the creature as a person.

118:10.6 (1305.1) Nevertheless, the Father as a person may at any time interpose a fatherly hand in the stream of cosmic events all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and in consonance with the wisdom of God and as motivated by the love of God.

118:10.7 (1305.2) But what man calls providence is all too often the product of his own imagination, the fortuitous juxtaposition of the circumstances of chance. There is, however, a real and emerging providence in the finite realm of universe existence, a true and actualizing correlation of the energies of space, the motions of time, the thoughts of intellect, the ideals of character, the desires of spiritual natures, and the purposive volitional acts of evolving personalities. The circumstances of the material realms find final finite integration in the interlocking presences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18:10.8 (1305.3) As the mechanisms of the grand universe are perfected to a point of final precision through the overcontrol of mind, and as creature mind ascends to the perfection of divinity attainment through perfected integration with spirit, and as the Supreme consequently emerges as an actual unifier of all these universe phenomena, so does providence become increasingly discernible.

118:10.9 (1305.4) Some of the amazingly fortuitous conditions occasionally prevailing on the evolutionary worlds may be due to the gradually emerging presence of the Supreme, the foretasting of his future universe activities. Most of what a mortal would call providential is not; his judgment of such matters is very handicapped by lack of farsighted vision into the true meanings of the circumstances of life. Much of what a mortal would call good luck might really be bad luck; the smile of fortune that bestows unearned leisure and undeserved wealth may be the greatest of human afflictions; the apparent cruelty of a perverse fate that heaps tribulation upon some suffering mortal may in reality be the tempering fire that is transmuting the soft iron of immature personality

일 수도 있다.

[118:10.10] 진화하는 우주들에 섭리가 있다, 그리고 창조체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적을 인식하는 수용력을 달성하는 바로 그 정도에 따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의 목적들을 분별하는 완성된 수용력은 창조체들의 진화 완성과 동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완성 우주들의 현재 지위의 한계 내에 있는 최극자의 달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118:10.11]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모든 개별 존재들의 행동들이나 반응들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존재의 가슴속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그 관계는—사람과 하느님—개인적이다. 신(神)의 미(未)개인적 현존은 (전능 최극자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관하여 현시한다. 최극위의 전반적-통제의 섭리는 유한 운명들의 성취 안에서 우주 진보의 연속적인 부분들로서 점점 더 분명하게 되어간다. 체계들, 별자리들, 우주들, 그리고 초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안정하게 됨에 따라, 최극자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상관자로서 점증적으로 창발 한다, 반면, 궁극자는 모든 사물들의 초월적 통합자로서 점진적으로 창발 한다.

[118:10.12] 진화 세계에서 태초(太初)에는, 물질적인 계층의 자연적 발생들과 인간 존재들의 개인적 욕구들은 종종 반목으로 나타난다. 진화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 필사 사람이 납득하기에 상당히 어렵다—자연 법칙은 인간의 납득에서 분명히 무자비하고 냉혹하여,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 그러나 행성 발달 속에서 인간성이 진보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118:10.13] 1. 사람의 증강되는 시야—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의 증가되는 납득; 시간의 물질 사실들, 생각의 의미 있는 관념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의 가치 있는 이상들의 이해를 위한 그의 확장되는 수용력. 사람들이 물리적 본성의 사물들의 잣대로만 측정하는 한,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합일체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결코 가질 수 없다.

[118:10.14] 2. 사람의 점증하는 통제—물질세계의 법칙들과 영적 실존의 목적들, 그리고 이러한 두 실체들의 철학적 조화-협동의 가능성들에 대한 지식의 점증적인 축적. 야만인, 사람들은 자연적 기세의 맹공격 앞에서 아무 것도 어찌할 수 없었으며,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공포심들의 비참한 지배 앞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 반(半) 문명화된 사람은 자연 영역들의 비밀들의 창고의 열쇠를 풀기 시작하였고, 그의 과학은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신의 미신들을 파괴시키는 동시에 철학의 의미들과 참된 영적 체험의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새로운 확장된 사실적 기초를 준비하였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자기 행성의 물리적 기체들을 상대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into the tempered steel of real character.

118:10.10 (1305.5) There is a providence in the evolving universes, and it can be discovered by creatures to just the extent that they have attained capacity to perceive the purpose of the evolving universes. Complete capacity to discern universe purposes equals the evolutionary completion of the creature and may otherwise be expressed as the attainment of the Supreme within the limit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incomplete universes.

118:10.11 (1305.6) The love of the Father operates directly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independent of the actions or reactions of all other individuals; the relationship is personal — man and God. The impersonal presence of Deity (Almighty Supreme and Paradise Trinity) manifests regard for the whole, not for the part. The providence of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becomes increasingly apparent as the successive parts of the universe progress in the attainment of finite destinies. As the systems, constellations, universes, and superuniverses become settled in light and life, the Supreme increasingly emerges as the meaningful correlator of all that is transpiring, while the Ultimate gradually emerges as the transcendental unifier of all things.

118:10.12 (1306.1) In the beginnings on an evolutionary world the natural occurrences of the material order and the personal desires of human beings often appear to be antagonistic. Much that takes place on an evolving world is rather hard for mortal man to understand — natural law is so often apparently cruel, heartless, and indifferent to all that is true, beautiful, and good in human comprehension. But as humanity progresses in planetary development, we observe that this viewpoint is modified by the following factors:

118:10.13 (1306.2) 1. *Man's augmenting vision* — his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in which he lives; his enlarging capacity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material facts of time, the meaningful ideas of thought, and the valuable ideals of spiritual insight. As long as men measure only by the yardstick of the things of a physical nature, they can never hope to find unity in time and space.

118:10.14 (1306.3) 2. *Man's increasing control* — the gradual accumulation of the knowledge of the laws of the material world, the purposes of spiritual existence,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philosophic co-ordination of these two realities. Man, the savage, was helpless before the onslaughts of natural forces, was slavish before the cruel mastery of his own inner fears. Semicivilized man is beginning to unlock the storehouse of the secrets of the natural realms, and his science is slowly but effectively destroying his superstition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new and enlarged factual basis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s of philosophy and the values of true

의 가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동료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따라 효력을 보이면서 흘러나올 것이며, 한편으로는 인간 실존의 가치들이 필사자 수용력의 한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118:10.15] 3. 사람의 우주 집대성 활동—인간 통찰력의 증가와 더해지는 인간의 체험적 성취의 증가는 그를—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최극존재—최극위의 통합하는 현존들과의 조화로움에 더욱 가깝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안정되어 온 세계에 최극자의 주권을 확립한다. 그러한 진보된 행성들은 정말로 조화의 시(詩)들이며, 조화우주 진리의 추구를 통하여 달성된 선(善)의 그림들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것들이 행성에 발생될 수 있다면, 그러면 체계와 더 광대한 대우주의 단위체에서도, 그들이 유한 성장의 잠재가 모두 소진되었음을 나타내는 안정됨을 그 역시 성취하는 데에 따라, 더욱 위대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118:10.16] 이러한 진보된 계층의 행성에서는, 섭리가 실재성으로 된다, 삶의 환경들은 상관관계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자기 세계의 물질적 문제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우주들의 경향에 따라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달성에 이르는 최극위의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118:10.17] 하느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다, 이 왕국이 세계의 모든 개별존재들의 가슴속에서 실재화될 때, 하느님의 통치가 그 행성에 실재화된다; 이것이 최극존재의 달성된 주권이다.

[118:10.18] 시간 속에서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완전을 성취되는 임무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지 간에, 모든 것의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탐구에서 하느님을 아는 필사자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우주 사실을 그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의 영원 의미들 속에 있는 이 섭리를 지금이라도 미리 맛볼 수 있다.

[118:10.19] 섭리는 사람들이 물질로부터 영적인 상태로 높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완성된 영적 통찰력의 달성은 상승하는 개인성으로 하여금 그 이전까지 혼돈의 상태였던 것에서 조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심지어 모론시아 모타도 이 방향에서 실제적인 진보를 표현한다.

[118:10.20] 섭리는 부분적으로 미완성 우주들 안에 현시된 미완성 최극자의 전반적-통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1. 부분적이다—최극존재의 실재화구현의 미완성 때문이다.

spiritual experience. Man, the civilized, will someday achieve relative mastery of the physical forces of his planet; the love of God in his heart will be effectively outpoured as love for his fellow men, while the values of human existence will be nearing the limits of mortal capacity.

118:10.15 (1306.4) 3. *Man's universe integration* — the increase of human insight plus the increase of human experiential achievement brings him into closer harmony with the unifying presences of Supremacy — Paradise Trinity and Supreme Being. And this is what establishes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on the worlds long settled in light and life. Such advanced planets are indeed poems of harmony, pictures of the beauty of achieved goodness attained through the pursuit of cosmic truth. And if such things can happen to a planet, then even greater things can happen to a system and the larger units of the grand universe as they too achieve a settledness indicating the exhaustion of the potentials for finite growth.

118:10.16 (1306.5) On a planet of this advanced order, providence has become an actuality, the circumstances of life are correlated, but this is not only because man has come to dominate the material problems of his world; it is also because he has begun to liv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universes; he is following the pathway of Supremacy to the attainment of the Universal Father.

118:10.17 (1306.6)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hearts of men, and when this kingdom becomes actual in the heart of every individual on a world, then God's rule has become actual on that planet; and this is the attained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118:10.18 (1306.7) To realize providence in time, man must accomplish the task of achieving perfection. But man can even now foretaste this providence in its eternity meanings as he ponders the universe fact that all things, be they good or evil, work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God-knowing mortals in their quest for the Father of all.

118:10.19 (1306.8) Providence becomes increasingly discernible as men reach upward from the material to the spiritual. The attainment of completed spiritual insight enables the ascending personality to detect harmony in what was theretofore chaos. Even morontia mota represents a real advance in this direction.

118:10.20 (1307.1) Providence is in part the overcontrol of the incomplete Supreme manifested in the incomplete universes, and it must therefore ever be:

118:10.21 (1307.2) 1. *Partial* —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actualization of the Supreme Being, and

2. 예측할 수 없다—차원과 차원에서 늘 변하는 창조체 태도에서의 동요, 그리하여 최극자 안에서 명백하게 달라지는 상호보답적인 응답에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동요 때문이다.

[118:10.21] 사람들이 삶의 환경에서 섭리의 개입을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경우, 삶을 향한 자기 자신의 태도 변화들이다. 그러나 섭리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마술도 아니다. 그것은 유한한 우주들의 강력한 주권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창발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창조체들은 그들의 우주 진보 속에서 그의 장엄한 현존을 때때로 발견하기도 한다. 섭리는 첫째는 최극자 안에서 그 다음에는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안에서, 영원의 목표들을 향한 우주 은하계들과 시간 개인성들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행진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에도 동일한 섭리가 있고, 이것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뜻이고 활동이고 목적이며 이렇게 우주들 위의 우주들의 조화우주 파노라마를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18:10.22]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막강한 메신저에 의해 후원되었음]

118:10.22 (1307.3) 2. *Unpredictable* — due to the fluctuations in creature attitude, which ever varies from level to level, thus causing apparently variable reciprocal response in the Supreme.

118:10.23 (1307.4) When men pray for providential intervention in the circumstances of life, many times the answer to their prayer is their own changed attitudes toward life. But providence is not whimsical, neither is it fantastic nor magical. It is the slow and sure emergence of the mighty sovereign of the finite universes, whose majestic presence the evolving creatures occasionally detect in their universe progressions. Providence is the sure and certain march of the galaxies of space and the personalities of time toward the goals of eternity, first in the Supreme, then in the Ultimate, and perhaps in the Absolute. And in infinity we believe there is the same providence, and this is the will, the actions, the purpose of the Paradise Trinity thus motivating the cosmic panorama of universes upon universes.

118:10.24 (1307.5) [Sponsored by a Mighty Messenger temporarily sojourning on Urantia.]

제 119 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 118

유랜시아 책

12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19 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섹션

소개

- 제 1 장. 첫 번째 증여
- 제 2 장. 두 번째 증여
- 제 3 장. 세 번째 증여
- 제 4 장. 네 번째 증여
- 제 5 장. 다섯 번째 증여
- 제 6 장. 여섯 번째 증여
- 제 7 장.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
- 제 8 장. 증여 이후의 미가엘의 신분

PAPER 119

THE BESTOWALS OF CHRIST
MICHAEL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First Bestowal
- 2. The Second Bestowal
- 3. The Third Bestowal
- 4. The Fourth Bestowal
- 5. The Fifth Bestowal
- 6. The Sixth Bestowal
- 7.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 8. Michael's Postbestowal Status

소개

네바돈의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인 나는 우주 통치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일곱 차례에 걸친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하는 임무를 띠고 가브리엘에 의해 유랜시아에 배정되었으며, 나의 이름은 가발리아이다. 이 글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나는 나의 임무에 의해 부과된 한계들을 엄밀히 지킬 것이다.

증여의 속성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선천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종속된 살아 있는 창조체들의 삶의 체험들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아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는데, 그랜한다의 상승 시기들 동안 그리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최초의 순례자가 발생하는 동안 하보나의 일곱 순환회로들 위에 직접 일곱 번 증여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대리자들인 미가엘과 아보날 아들들의 개인성들 속에서 우주의 지역우주들에게 자신을 계속 증여한다.

INTRODUCTION

119:0.1 (1308.1) CHIEF of the Evening Stars of Nebadon, I am assigned to Urantia by Gabriel on the mission of revealing the story of the seven bestowals of the Universe Sovereign, Michael of Nebadon, and my name is Gavalia. In making this presentation, I will adhere strictly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my commission.

119:0.2 (1308.2) The attribute of bestowal is inherent in the Paradise Sons of the Universal Father. In their desire to come close to the life experiences of their subordinate living creatures, the various orders of the Paradise Sons are reflecting the divine nature of their Paradise parents. The Eternal Son of the Paradise Trinity led the way in this practice, having seven times bestowed himself upon the seven circuits of Havona during the times of the ascension of Grandfanda and the first of the pilgrims from time and space. And the Eternal Son continues to bestow himself upon the local universes of space in the persons of his representatives, the Michael and Avonal Sons.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 아들을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우주에 중여할 때, 그 창조자 아들은 새로운 그 우주의 완성과 통제 그리고 평정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맡는데, 그의 일곱 차례에 걸친 중여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관할하는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보증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창조계에 대한 충분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삼위일체에 드리는 엄중한 맹세를 포함한다. 이 의무는 우주 조직과 창조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온 모든 미가엘 아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창조체 육신화들의 목적은 그러한 창조자들이 현명하고 동정적이며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주권자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태생적으로 의롭지만, 계속되는 이 중여 체험들의 결과로 사려 깊게 자비로운 존재가 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자비가 넘치지만, 이 체험들이 그들을 새롭고도 추가적인 방법으로 자비롭도록 만든다. 이 중여들은 신성한 정의로 그리고 정당한 심판에 의해서 지역우주들을 통치하는 숭고한 임무들을 위한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정들이다.

수많은 부수적 유익이 이 중여들에 의해 이득을 얻고 영향을 받는 우주 지능체들의 다른 계층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여러 세계들과 체계들 그리고 별자리들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창조자 아들의 자신의 개인적 훈련과 우주적 교육을 완성하도록 기원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여들은 지역우주의 현명하고 의로우며 효과적인 운영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반면, 삶에 대한 그것의 다양한 형태들과 지능적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무수한 창조체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창조에 대한 공정하고도 자비로우며 납득하는 관리-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가엘 아들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존재들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동정심으로 우주 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일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들 서로 다른 모든 창조체들을 위한 자비의 엄청난 비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스스로 만든 이기적인 수렁 속에서 잘못을 범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연민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자질들이 옛적으로 늘 계신 이들이 어림잡은 것 안에서 만족되지는 못할 것이다. 초우주들의 이들 삼원적 통치자들은 창조자 아들이 그 자신의 창조체들의 관점을, 그들 실존의 환경에서 그리고 바로 이들 창조체 자신으로서 실재적 체험에 의하여, 실제로 획득하기 전에는, 창조자 아들을 우주 주권자로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법으로 그러한 아들들은 총명하고 납득하는 통치자가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우주 권한을 행사하는 다양한 집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체험적 창조체 실존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체험으로서, 실천적 자비, 공정한 판단, 그리고 인내심을 스스로 소유한다.

119:0.3 (1308.3) When the Eternal Son bestows a Creator Son upon a projected local universe, that Creator Son assume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mpletion, control, and composure of that new universe, including the solemn oath to the eternal Trinity not to assume full sovereignty of the new creation until his seven creature bestowals shall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nd certified by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of jurisdiction. This obligation is assumed by every Michael Son who volunteers to go out from Paradise to engage in universe organization and creation.

119:0.4 (1308.4) The purpose of these creature incarnations is to enable such Creators to become wise, sympathetic, just, and understanding sovereigns. These divine Sons are innately just, but they become understandingly merciful as a result of these successive bestowal experiences; they are naturally merciful, but these experiences make them merciful in new and additional ways. These bestowals are the last steps in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ublime tasks of ruling the local universes in divine righteousness and by just judgment.

119:0.5 (1308.5) Though numerous incidental benefits accrue to the various worlds, systems, and constellations, as well as to the different orders of universe intelligences affected and benefited by these bestowals, still they are primarily designed to complete the personal training and universe education of a Creator Son himself. These bestowals are not essential to the wise, jus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a local universe, but they are absolutely necessary to a fair, merciful, and understanding administration of such a creation, teeming with its varied forms of life and its myriads of intelligent but imperfect creatures.

119:0.6 (1308.6) The Michael Sons begin their work of universe organization with a full and just sympathy for the various orders of beings whom they have created. They have vast stores of mercy for all these differing creatures, even pity for those who err and flounder in the selfish mire of their own production. But such endowments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not suffice in the estimate of the Ancients of Days. These triune rulers of the superuniverses will never certify a Creator Son as Universe Sovereign until he has really acquired the viewpoint of his own creatures by actual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of their existence and as these very creatures themselves. In this way such Sons become intelligent and understanding rulers; they come to *know* the various groups over which they rule and exercise universe authority. By living experience they possess themselves of practical mercy, fair judgment, and the patience born of experiential creature existence.

네바돈이라는 지역우주는 현재 자신의 증여 봉사를 완료한 한 창조자 아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화하고 완전으로 되고 있는 우주의 광대한 영역들 전체에 대해 공의롭고도 자비로운 최극위를 행사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시간과 공간 우주들에게 영원한 아들이 611,121번째로 증여된 것이고, 그는 4천억 년 전쯤에 너희 지역우주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미가엘은 유란시아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 무렵인 약 10억 년 전에 자신의 첫 번째 증여 조항을 준비하였다. 그의 증여들은 1억 5,000만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는데, 마지막 증여는 약 1,900년 전에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이 증여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나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밝히고자 한다.

제 1 장. 첫 번째 증여

거의 10억 년 전, 네바돈 우주의 지도관들과 우두머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가엘이 자신(미가엘)의 밝혀지지 않은 임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신의 형님인 임마누엘이 네바돈에서의 주권을 곧 대신하게 될 것임을 밝혔을 때 그것은 구원자별에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제외한다면, 다른 여러 지도들 가운데에서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떠나있는 이 기간 동안 너희를 임마누엘의 보호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말 이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어떤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작별 인사를 발표한 이후에, 미가엘은 구원자별의 파견 장소에 나타났는데, 그가 혼자서 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유버사 또는 파라다이스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그 전의 여러 경우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출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를 떠나 있을 것이다. 너희들 대부분이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나의 임무를 완결하고 이 체험을 갖게 되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의 눈에서 사라졌고 표준시간으로 2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구원자별 전체에서, 오직 신성한 통치자와 임마누엘만이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를 알았으며, 연합으로 늘 계신이는 그의 비밀을 오직 그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 가브리엘, 빛나는 새벽별과 공유하였다.

구원자별의 모든 주민(住民)들과 그 별자리 그리고 체계 본부 세계들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그 창조자 아들의 임무와 행방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희망을 안고 우주 지능체를 향한 그들 각각의 수신소에 모여 있었다. 미가엘이 출발

119:0.7 (1309.1)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is now ruled by a Creator Son who has completed his service of bestowal; he reigns in just and merciful supremacy over all the vast realms of his evolving and perfecting universe. Michael of Nebadon is the 611,121st bestowal of the Eternal Son upo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and he began the organization of your local universe about four hundred billion years ago. Michael made ready for his first bestowal adventure about the time Urantia was taking on its present form, one billion years ago. His bestowals have occurred abou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part, the last taking place on Urantia nineteen hundred years ago. I will now proceed to unfold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se bestowals as fully as my commission permits.

1. THE FIRST BESTOWAL

119:1.1 (1309.2) It was a solemn occasion on Salvington almost one billion years ago when the assembled directors and chiefs of the universe of Nebadon heard Michael announce that his elder brother, Immanuel, would presently assume authority in Nebadon while he (Michael) would be absent on an unexplained mission. No other announcement was made about this transaction except that the farewell broadcast to the Constellation Fathers, among other instructions, said: “And for this period I place you under the care and keeping of Immanuel while I go to do the bidding of my Paradise Father.”

119:1.2 (1309.3) After sending this farewell broadcast, Michael appeared on the dispatching field of Salvington, just as on many previous occasions when preparing for departure to Uversa or Paradise except that he came alone. He concluded his statement of departure with these words: “I leave you but for a short season. Many of you, I know, would go with me, but whither I go you cannot come. That which I am about to do, you cannot do. I go to do the will of the Paradise Deities, and when I have finished my mission and have acquired this experience, I will return to my place among you.” And having thus spoken, Michael of Nebadon vanished from the sight of all those assembled and did not reappear for twenty years of standard time. In all Salvington, only the Divine Minister and Immanuel knew what was taking place, and the Union of Days shared his secret only with the chief executive of the universe,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119:1.3 (1309.4) All the inhabitants of Salvington and those dwelling on the constellation and system headquarters worlds assembled about their respective receiving stations for universe intelligence, hoping to get some word of the

한 지 3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중대한 소식도 받지 못하였다. 이 날, 네바돈에 있는 그 계층의 본부들인 멜기세덱 구체로부터 하나의 교신(交信)이 구원자별에 등록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에 들어본 바가 없는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조직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한 낯선 멜기세덱 아들이 오늘 정오에 이 세계의 수신소에 나타났다. 그는 단독의 전(全)천사를 대동하였는데, 그 존재는 유버사로부터의 신임장을 간직하였고 우리들의 우두머리에게 지도를 내렸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유래되었고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의 동의를 받았으며, 새로운 이 멜기세덱 아들이 우리들의 계층 속에 받아들여지고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의 비상 봉사에 배정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되었다;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관하여 구원자별의 기록들 속에 나타난 전부이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런 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때에서야 미가엘의 발표되지 않은 우주 관련사들의 지도 재개와 복귀의 사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기록이 멜기세덱 세계에서 발견될 것인데, 그것은 그 시대의 비상 무리단들에 속한 이 독특한 멜기세덱 아들의 봉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기록은 현재 아버지 멜기세덱의 집의 전경(前景)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한 모습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고, 우주 비상사태에 대한 24번의 임무들에 그가 배정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 일시적인 멜기세덱 아들의 봉사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내가 살펴본 이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날 정오에, 사전 발표 없이 그리고 오직 세 명의 우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계층의 이 방문자 아들은 그가 왔던 대로 우리 세계로부터 사라졌는데, 오직 한 명의 단독의 전(全)천사만이 동행하였다; 이 기록은 이 방문자가 현재 하나의 멜기세덱으로서, 그가 하나의 멜기세덱으로서 활동하였던 멜기세덱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음과, 그가 우리들 계층의 비상대책 아들로써 배정되었던 모든 업무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였음에 대한 증명과 함께 폐쇄되어 있다. 우주적인 허락에 의해 그는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의 비길 데 없는 지혜와 최극의 사랑 그리고 임무에 대한 뛰어난 헌신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과 숭배를 받는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납득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봉사하였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의 충성되고 헌신된 멜기세덱들인데,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서 이 손님이 지금은 영원토록 멜기세덱 본성의 우주 사명활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대해 너희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전부이다. 물론 우리는 10억 년 전에 멜기세덱들과 함께 너무도 신비스럽게 봉사하였던 이 색다른 멜기세덱이 자신의 첫 번째 증여 임무를 위해 육신화되었던 바로 그

mission and whereabouts of the Creator Son. Not until the third day after Michael's departure was any message of possible significance received. On this day a communication was registered on Salvington from the Melchizedek sphere, the headquarters of that order in Nebadon, which simply recorded this extraordinary and never-before-heard-of transaction: “At noon today there appeared on the receiving field of this world a strange Melchizedek Son, not of our number but wholly like our order. He was accompanied by a solitary omniaphim who bore credentials from Uversa and presented orders addressed to our chief, derived from the Ancients of Days and concurred in by Immanuel of Salvington, directing that this new Melchizedek Son be received into our order and assigned to the emergency service of the Melchizedeks of Nebadon. And it has been so ordered; it has been done.”

119:1.4 (1310.1) And this is about all that appears on the records of Salvington regarding the first Michael bestowal. Nothing more appears until after one hundred years of Urantia time, when there was recorded the fact of Michael's return and unannounced resumption of the direction of universe affairs. But a strange record is to be found on the Melchizedek world, a recital of the service of this unique Melchizedek Son of the emergency corps of that age. This record is preserved in a simple temple which now occupies the foreground of the home of the Father Melchizedek, and it comprises the narration of the service of this transitory Melchizedek Son in connection with his assignment to twenty-four missions of universe emergency. And this record, which I have so recently reviewed, ends thus:

119:1.5 (1310.2) “And at noon on this day, without previous announcement and witnessed by only three of our brotherhood, this visiting Son of our order disappeared from our world as he came, accompanied only by a solitary omniaphim; and this record is now closed with the certification that this visitor lived as a Melchizedek, in the likeness of a Melchizedek he worked as a Melchizedek, and he faithfully performed all of his assignments as an emergency Son of our order. By universal consent he has become chief of Melchizedeks, having earned our love and adoration by his matchless wisdom, supreme love, and superb devotion to duty. He loved us, understood us, and served with us, and forever we are his loyal and devoted fellow Melchizedeks, for this stranger on our world has now eternally become a universe minister of Melchizedek nature.”

119:1.6 (1310.3) And that is all I am permitted to tell you of the first bestowal of Michael. We, of course, fully understand that this strange Melchizedek who so mysteriously served with the Melchizedeks a billion years ago was none other than the

미가엘이었음을 충만하게 납득한다. 기록들은 독특하고도 유능한 이 멜기세덱이 미가엘이었음을 특별하게 입증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은 우주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사실에 대한 실재적인 설명이 아들들의 기록들 이외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며, 그 비밀한 세계의 기록들은 우리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신성한 아들들의 이 신성한 세계에서만 육신화와 증여에 대한 그 비밀들이 충만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모두 미가엘 증여들에 대한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 멜기세덱들의 창조자가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그들 중의 하나로서, 100년 동안 하나의 멜기세덱 아들로써 일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incarnated Michael on the mission of his first bestowal. The records do not specifically state that this unique and efficient Melchizedek was Michael, but it is universally believed that he was. Probably the actual statement of that fact cannot be found outside of the records of Sonarington, and the records of that secret world are not open to us. Only on this sacred world of the divine Sons are the mysteries of incarnation and bestowal fully known. We all know of the facts of the Michael bestowals, but we do not understand how they are effected. We do not know how the ruler of a universe, the creator of the Melchizedeks, can so suddenly and mysteriously become one of their number and, as one of them, live among them and work as a Melchizedek Son for one hundred years. But it so happened.

제 2 장. 두 번째 증여

2. THE SECOND BESTOWAL

미가엘의 멜기세덱 증여 이후 거의 1억 5,000만 년 동안 네바돈의 우주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고, 그 후에 37번 별자리의 11번 체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체계 주권자인 라노난덱 아들에 의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자리 아버지들에 의해 이미 판결이 내려졌었고 그 별자리에 대한 파라다이스 조인자인 충심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공인되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그 체계 주권자는 그 판결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았다. 불만족한 상태로 1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는 네바돈 우주 안에서 항상 유발되었던 창조자 아들의 주권에 대항하는 가장 널리 퍼지고 위험한 반역들 중의 하나에 자기 연관-동료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는데, 그 반역은 판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유버사에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활동에 의해 종료되었다.

119:2.1 (1310.4) For almos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 years after the Melchizedek bestowal of Michael, all went well in the universe of Nebadon, when trouble began to brew in system 11 of constellation 37. This trouble involved a misunderstanding by a Lanonandek Son, a System Sovereign, which had been adjudicated by the Constellation Fathers and approved by the Faithful of Days, the Paradise counselor to that constellation, but the protesting System Sovereign was not fully reconciled to the verdict. Afte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f dissatisfaction he led his associates in one of the most widespread and disastrous rebellions against the sovereignty of the Creator Son ever instigated in the universe of Nebadon, a rebellion long since adjudicated and ended by the a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반역한 이 체계 주권자 루텐시아는 네바돈 표준시간으로 20년 이상 자신의 본부 행성에서 최극의 권위에 있었다; 그 후에 지고자는 유버사로부터의 허락을 받아 그의 분리를 명하였고, 투쟁으로 비난에 젖고 혼동된 체계에 속한 거주민이 사는 세계들의 지도를 담당할 새로운 체계 주권자에 대한 지명을 구원자별 통치자들에게 요청하였다.

119:2.2 (1311.1) This rebel System Sovereign, Lutentia, reigned supreme on his headquarters planet for more than twenty years of standard Nebadon time; whereupon, the Most Highs, with approval from Uversa, ordered his segregation and requisitioned the Salvington rulers for the designation of a new System Sovereign to assume direction of that strife-torn and confused system of inhabited worlds.

구원자별에 대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미가엘은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 연합으로 늘 계신이의 손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우주 본부로부터 떠나기 위해 섰다. 그 성명서들 중 두 번째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19:2.3 (1311.2) Simultaneously with the reception of this request on Salvington, Michael initiated the second of those extraordinary proclamations of intention to be absent from the universe headquarters for the purpose of “doing the bidding of my Paradise Father,” promising to “return in due season” and concentrating all authority in the hand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the Union of Days.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증여와 관련되어 그가 떠나던 때에 목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미가

119:2.4 (1311.3) And then, by the same technique observed at the time of his departure in connection with the Melchizedek bestowal, Michael again took

엘은 다시 자신의 본부 구체를 떠나갔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 작별이 있는 지 3일 후에, 하나의 새롭고도 알려지지 않은 요원이 네바돈의 1차 라노넵 아들들의 예비무리단 속에 나타났다. 새로운 이 아들은 정오 무렵에 나타났는데, 홀로 있는 3품천사를 대동하여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의 신임장을 지참하였고,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새로운 이 아들이 37번 별자리의 11번 체계에 물려난 루텐시아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주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활동하는 체계 주권자로서의 충분한 권한을 갖고 배정되었음을 지도하였다.

우주 시간으로 17년 이상 동안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임시적 통치자가 그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하였으며, 혼동되고 문란한 이 지역 체계의 어려움들을 판결하였다. 그전에 어떤 체계 주권자도 이보다 더 열렬한 사랑을 받고 더 널리 존중받으며 높이 평가된 적이 없었다. 공의와 자비의 면에 있어서 새로운 이 통치자는 교란된 그 체계의 질서를 잡은 반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공들여 보살폈는데, 자신의 임의적인 행동들에 대해 임마누엘에게 사과만 하였다라면 체계 직위 권한을 공유하는 특권을 자신의 반항적인 전임자에게 제공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나 루텐시아는 이러한 자비로운 권유들을 일축하였는데, 새롭고도 낯선 이 체계 통치자가, 아주 최근에 자신이 공공연히 반항하였던 바로 그 우주 통치자인 미가엘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오도되고 현혹된 그의 추종자들은 그 시대에 파로니아 체계의 구원자 주권자로서 알려진 새로운 이 통치자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새로 지정된, 우주 권한자들에게 의해 폐위된 루텐시아의 영원한 후계자로서 지명된 체계 주권자가 그곳에 도착한 사건 많은 날이 도래하였으며, 파로니아 전체는 지금까지 네바돈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자한 체계 통치자와의 이별을 슬퍼하였다. 그는 모든 체계들의 사랑을 받았고 라노넵 아들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모든 동료 집단들로부터 숭앙을 받았다. 그는 아무런 예식 없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가 그 체계 본부를 떠날 때 하나의 성대한 축전이 준비되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한 그의 전임자도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공의롭고 정당하였습니다. 제가 파라다이스 규칙을 계속 거부하는 동안에도, 저는 당신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행정-관리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 체계의 이 과도기 통치자는 자신의 짧은 행정-관리를 맡은 채류기간을 가진 그 행성을 떠났으며, 한편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나타났고 네바돈 우주의 통치를 재개하였다. 미가엘의 주권과 권한의 승진된 주권에 대한 세 번째 유버사 선포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선포는 그가 네바돈에 도착하였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증여의 완성 직후에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 즉 라노넵 임무의 종료 다음에 있었다.

leave of his headquarters sphere. Three days after this unexplained leave-taking there appeared among the reserve corps of the primary Lanonandek Sons of Nebadon, a new and unknown member. This new Son appeared at noon, unannounced and accompanied by a lone tertiphim who bore credentials from the Uversa Ancients of Days,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directing that this new Son be assigned to system 11 of constellation 37 as the successor of the deposed Lutentia and with full authority as acting System Sovereign pending the appointment of a new sovereign.

119:2.5 (1311.4) For more than seventeen years of universe time this strange and unknown temporary ruler administered the affairs and wisely adjudicated the difficulties of this confused and demoralized local system. No System Sovereign was ever more ardently loved or more widely honored and respected. In justice and mercy this new ruler set the turbulent system in order while he painstakingly ministered to all his subjects, even offering his rebellious predecessor the privilege of sharing the system throne of authority if he would only apologize to Immanuel for his indiscretions. But Lutentia spurned these overtures of mercy, well knowing that this new and strange System Sovereign was none other than Michael, the very universe ruler whom he had so recently defied. But millions of his misguided and deluded followers accepted the forgiveness of this new ruler, known in that age as the Savior Sovereign of the system of Palonia.

119:2.6 (1311.5) And then came that eventful day on which there arrived the newly appointed System Sovereign, designated by the universe authorities as the permanent successor of the deposed Lutentia, and all Palonia mourned the departure of the most noble and the most benign system ruler that Nebadon had ever known. He was beloved by all the system and adored by his fellows of all groups of the Lanonandek Sons. His departure was not unceremonious; a great celebration was arranged when he left the system headquarters. Even his erring predecessor sent this message: “Just and righteous are you in all your ways. While I continue in rejection of the Paradise rule, I am compelled to confess that you are a just and merciful administrator.”

119:2.7 (1312.1) And then did this transient ruler of a rebellious system take leave of the planet of his short administrative sojourn, while on the third day thereafter Michael appeared on Salvington and resumed the direction of the universe of Nebadon. There soon followed the third Uversa proclamation of the advancing jurisdiction of the sovereignty and authority of Michael. The first proclamation was made at the time of his arrival in Nebadon, the second was issued so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elchizedek bestowal, and now the third

follow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second or Lanonandek mission.

제 3 장. 세 번째 증여

구원자별에 있는 최고협의회는 61번 별자리 안에 있는 87번 체계의 217번 행성에서, 그들을 돕도록 한 물질아들을 급파해 달라는 생명운반자들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방금 완결 지었었다. 지금 이 행성은 그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는 그러한 반역이 두 번 있었던, 또 다른 체계 주권자가 잘못에 빠진, 거주세계들의 체계에 위치하게 되었다.

미가엘의 요청에 따라, 이 행성의 생명운반자들의 청원에 대한 작용이 임마누엘에 의해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보고에 의해 고려되는 동안 연기되었다. 이것은 변칙적인 과정이었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유별난 일을 예상하였고 불안감에 오래 젖어있지는 않았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미가엘은 우주 관리를 임마누엘의 손에 맡기는 일에 착수하는 한편, 천국의 무리들에 대한 명령권을 가브리엘에게 위탁하였고, 자신의 행정-관리적 책임을 그렇게 배분하면서, 우주 어머니 영을 떠났으며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구원자별의 파견 장소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예상되었던 대로,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에 예고 없이 61번 별자리에 있는 87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하나의 낯선 물질아들이 출현하였는데, 홀로 있는 2품천사와 동행하였고,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보증되었다. 활동 중인 그 체계 주권자는 새롭고 신비로운 이 물질아들이 217번 세계의 행성영주로 활동하도록 즉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임명은 61번 별자리의 지고자에 의해 즉시 비준되었다.

그래서 독특한 이 물질아들은 행성 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 세대 동안 혼자 활동하면서, 외부 우주와의 어떤 직접적인 교신 없이 포위된 체계 안에 위치한, 분리와 반역의 한 고립된 세계에서 자신의 힘든 생애를 시작하였다. 비상시의 이 물질아들은 행성영주와 그의 전체 참모들의 불이행에 대한 회개와 교화(敎化)를 이룩하였으며 지역우주들 안에 설립된 대로 파라다이스 규칙의 충성스러운 봉사에 그 행성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때가 이르자, 원기를 회복하고 구제된 이 세계에 물질아들과 딸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이 눈에 보이는 행성 통치자들로서 정당하게 임명되자, 임시적인 또는 비상시의 행성영주는 공식적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정오에 사라졌다.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있는 자신이 늘 있었던 장소에 나타났으며, 초우주 방송은 네바돈에서의 미가엘의 더욱 증진된 주권을 알리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네 번째 선언을 즉시 가져왔다.

3. THE THIRD BESTOWAL

119:3.1 (1312.2) The supreme council on Salvington had just finished the consideration of the call of the Life Carriers on planet 217 in system 87 in constellation 61 for the dispatch to their assistance of a Material Son. Now this planet was situated in a system of inhabited worlds where another System Sovereign had gone astray, the second such rebellion in all Nebadon up to that time.

119:3.2 (1312.3) Upon the request of Michael, action on the petition of the Life Carriers of this planet was deferred pending its consideration by Immanuel and his report thereon. This was an irregular procedure, and I well remember how we all anticipated something unusual, and we were not long held in suspense. Michael proceeded to place universe direction in the hands of Immanuel, while he intrusted command of the celestial forces to Gabriel, and having thus disposed of hi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he took leave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and vanished from the dispatching field of Salvington precisely as he had done on two previous occasions.

119:3.3 (1312.4) And, as might have been expected, on the third day thereafter there appeared, unannounced, on the headquarters world of system 87 in constellation 61, a strange Material Son, accompanied by a lone seconaphim, accredited by the Uversa Ancients of Days, and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Immediately the acting System Sovereign appointed this new and mysterious Material Son acting Planetary Prince of world 217, and this designation was at once confirmed by the Most Highs of constellation 61.

119:3.4 (1312.5) Thus did this unique Material Son begin his difficult career on a quarantined world of secession and rebellion, located in a beleaguered system without any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universe, working alone for one whole generation of planetary time. This emergency Material Son effected the repentance and reclamation of the defaulting Planetary Prince and his entire staff and witnessed the restoration of the planet to the loyal service of the Paradise rule as established in the local universes. In due time a Material Son and Daughter arrived on this rejuvenated and redeemed world, and when they had been duly installed as visible planetary rulers, the transitory or emergency Planetary Prince took formal leave, disappearing at noon one day. On the third day thereafter, Michael appeared in his accustomed place on Salvington, and very soon the superuniverse broadcasts carried the fourth proclam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nnouncing

나는 이 물질아들이 혼동된 이 행성에서 괴로운 환경들을 이겨낸 그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노련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허락을 말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립된 이 세계에 대한 교화(敎化)는 네바돈 전체의 생존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매혹적으로 감동적인 단원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임무가 마쳤을 때 지능 존재의 어떤 종속적 계층과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 이 증여들 속에 참여하기를 그들의 사랑하는 통치자가 왜 선택하였는지가 네바돈 전체에게 이미 명백하게 되었다.

멜기세덱 아들로써, 그 다음에는 라노난덱 아들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아들로써의 미가엘의 증여는 모두 똑같이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증여된 그 집단의 충만하게 성숙된 개별 존재로 나타났다. 그러한 육신화들의 비밀은 아들들의 신성한 구체에 있는 기록들의 내부 순환계에 접근한 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고립과 반역 속에 있는 세계의 행성영주로서의 이 놀라운 증여 이후로, 네바돈에 있는 어떤 물질아들과 딸들도 자기들의 직책에 대해 불평하도록 또는 자기들의 행성 임무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비난하도록 유혹된 적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물질아들들은 그 우주의 창조자 아들 안에서 자신들이 분별력 있는 주권자와 동정심을 가진 친구, 자신들도 시도되고 시험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점들에서 시도되고 시험된” 어떤 존재를 소유하고 있음을 항상 알았기 때문이다.

이 각각의 임무들 뒤에는 우주 기원의 모든 천상(天上)의 지능체들 가운데에서의 증가되는 봉사와 충성이 따라왔으며, 반면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각각의 증여 시대는 우주 관리-행정의 모든 방법들 면에서 그리고 정부의 모든 기법들 면에서 발달하고 진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증여 이후로 어떤 물질아들 또는 딸도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결코 의식적으로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오직 속임수와 꾀변을 통해서만 보다 높은 유형의 반역적 개인성들에 의해 최근의 아담들이 타락으로 인도되었다.

제 4 장. 네 번째 증여

미가엘이 네바돈 정부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의 손에 맡기려고 나선 것은 유버사의 1,000년의 주기적 점호(點呼)들 중의 하나가 끝날 무렵이었다; 물론, 그러한 활동에 뒤따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네 번째 증여 임무를 위해 그가 사라질 것을 목격하려고 준비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곧 구원자별 광견장소로 나가 우리들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the further advancement of the sovereignty of Michael in Nebadon.

119:3.5 (1312.6) I regret that I do not have permission to narrate the patience, fortitude, and skill with which this Material Son met the trying situations on this confused planet. The reclamation of this isolated worl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ly touching chapters in the annals of salvation throughout Nebadon. By the end of this mission it had become evident to all Nebadon as to why their beloved ruler chose to engage in these repeated bestowals in the likeness of some subordinate order of intelligent being.

119:3.6 (1313.1) The bestowals of Michael as a Melchizedek Son, then as a Lanonandek Son, and next as a Material Son are all equally mysterious and beyond explanation. In each instance he appeared *suddenly* and as a fully developed individual of the bestowal group. The mystery of such incarnations will never be known except to those who have access to the inner circle of the records on the sacred sphere of Sonarington.

119:3.7 (1313.2) Never, since this marvelous bestowal as the Planetary Prince of a world in isolation and rebellion, have any of the Material Sons or Daughters in Nebadon been tempted to complain of their assignments or to find fault with the difficulties of their planetary missions. For all time the Material Sons know that in the Creator Son of the universe they have an understanding sovereign and a sympathetic friend, one who has in “all points been tried and tested,” even as they must also be tried and tested.

119:3.8 (1313.3) Each of these missions was followed by an age of increasing service and loyalty among all celestial intelligences of universe origin, while each succeeding bestowal age was characterized by advancement and improvement in all method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in all techniques of government. Since this bestowal no Material Son or Daughter has ever knowingly joined in rebellion against Michael; they love and honor him too devotedly ever consciously to reject him. Only through deception and sophistry have the Adams of recent times been led astray by higher types of rebel personalities.

4. THE FOURTH BESTOWAL

119:4.1 (1313.4) It was at the end of one of the periodic millennial roll calls of Uversa that Michael proceeded to place the government of Nebadon in the hands of Immanuel and Gabriel; and, of course, recalling what had happened in times past following such action, we all prepared to witness Michael's disappearance on his fourth mission of bestowal, and we were not long kept waiting, for he shortly went out upon the Salvington

증여를 위해 사라진 후 셋째 날에, 우리는 유버사에 보내진 우주 방송에서 네바돈의 세라핌천사 본부로부터 이런 의의(意義)깊은 소식 내용을 관찰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세라핌천사의 예고 없는 방문을 보고하겠는데, 단독의 초(超)천사와 구원자별의 가브리엘이 동행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이 세라핌천사는 네바돈 계층의 자격이 있고 유버사 옛적으로 늘 계신이로부터의 신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보증되었다. 이 세라핌천사는 지역우주의 천사들의 최극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고, 교습 조연자 무리단에 이미 배정되었다.”

세라핌천사 증여의 이 기간 동안, 우주 표준 시간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없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하나의 가르치는 세라핌천사 교습 조연자, 너희가 개인 비서라고 일컫는 존재로서 배정되었는데, 22개의 서로 다른 세계들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마지막 또는 최종 임무는 네바돈 우주에서 3번 별자리의 84번 체계에 있는 462번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임무에 소속된 조연자와 조력자로서 이었다.

이렇게 배정된 7년의 기간 동안,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은 자신의 세라핌천사 연관-동료의 신분 에 관하여 전적으로 확신된 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세라핌천사들은 그 시기 동안 정말로 독특한 흥미와 관심으로 대해졌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우주 안에 파견되었고 하나의 세라핌천사로 변장해 있었음을 잘 알았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적극적으로 정체성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두루 그 최극 세라핌천사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창조체 증여의 임무에 임하고 있는 그 우주의 주권자를 위하여 불시에 무리 역할을 했었음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 그가 “세라핌천사 개인성의 모습을 입고서 모든 면을 시험했고 단련했음”이 언제까지나 진실이 되어오고 있다.

계속적인 이 증여들이 우주 생명의 보다 낮은 형태들의 본성을 점점 더 가미함에 따라, 가브리엘은 이 육신화 모험들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였는데, 그것은 증여된 미가엘과 활동하는 우주 통치자인 임마누엘 사이에 우주 연락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미가엘은 이제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아들들의 세 계층에 대한 증여 체험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 라노난덱, 물질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에게 속한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필사자들인 의지적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형태의 상승 생애에 대한 다양한 위상들에 관심을 돌리기 전에 하나의 최극 세라핌천사로서 천사의

dispatching field and was lost to our view.

119:4.2 (1313.5) On the third day after this bestowal disappearance we observed, in the universe broadcasts to Uversa, this significant news item from the seraphic headquarters of Nebadon: “Reporting the unannounced arrival of an unknown seraphim, accompanied by a solitary supernaphim and Gabriel of Salvington. This unregistered seraphim qualifies as of the Nebadon order and bears credentials from the Uversa Ancients of Days,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This seraphim tests out as belonging to the supreme order of the angels of a local universe and has already been assigned to the corps of the teaching counselors.”

119:4.3 (1313.6) Michael was absent from Salvington during this, the seraphic bestowal, for a period of over forty standard universe years. During this time he was attached as a seraphic teaching counselor, what you might denominate a private secretary, to twenty-six different master teachers, functioning on twenty-two different worlds. His last or terminal assignment was as counselor and helper attached to a bestowal mission of a Trinity Teacher Son on world 462 in system 84 of constellation 3 in the universe of Nebadon.

119:4.4 (1314.1) Never, throughout the seven years of this assignment, was this Trinity Teacher Son wholly persuaded as to the identity of his seraphic associate. True, all seraphim during that age were regarded with peculiar interest and scrutiny. Full well we all knew that our beloved Sovereign was abroad in the universe, disguised as a seraphim, but never could we be certain of his identity. Never was he positively identified until the time of his attachment to the bestowal mission of this Trinity Teacher Son. But always throughout this era were the supreme seraphim regarded with special solicitude, lest any of us should find that we had unawares been host to the Sovereign of the universe on a mission of creature bestowal. And so it has become forever true, concerning angels, that their Creator and Ruler has been “in all points tried and tested in the likeness of seraphic personality.”

119:4.5 (1314.2) As these successive bestowals partook increasingly of the nature of the lower forms of universe life, Gabriel became more and more an associate of these incarnation adventures, functioning as the universe liaison between the bestowed Michael and the acting universe ruler, Immanuel.

119:4.6 (1314.3) Now has Michael passed through the bestowal experience of three orders of his created universe Sons: the Melchizedeks, the Lanonandeks, and the Material Sons. Next he condescends to personalize in the likeness of angelic life as a supreme seraphim before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various phases of the

삶과 비슷한 상태로 개인성구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

ascending careers of his lowest form of will creatures, the evolutionary mortals of time and space.

제 5 장. 다섯 번째 증여

5. THE FIFTH BESTOWAL

유란시아에서의 시간 계산대로, 3억 년보다 약간 더 이전에, 우리는 또 한 번 임마누엘에게 우주 권한을 이양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미가엘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경우는 그의 목적지가 오르본톤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사임을 그가 알린 점에서 그 이전의 다른 경우들과 달랐다. 때가 되자 우리의 주권자가 떠났지만, 초우주의 방송은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법정에 미가엘이 도착하였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구원자별에서 떠난 직후에 유버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방송이 있었다: “미리 알려지지 않고 번호가 없으며 필사자 기원을 갖는 상승 순례자가 네바돈이라는 우주로부터 오늘 도착하였는데, 구원자별의 임마누엘에 의해 공인되었고 네바돈의 가브리엘이 동행하였다. 미(未)-정체성확인인 이 존재는 참된 영의 지위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동료관계로 받아들여졌다.”

119:5.1 (1314.4) A little over three hundred million years ago, as time is reckoned on Urantia, we witnessed another of those transfers of universe authority to Immanuel and observed the preparations of Michael for departure. This occasion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in that he announced that his destination was Uversa,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of Orvonton. In due time our Sovereign departed, but the broadcasts of the superuniverse never made mention of Michael's arrival at the courts of the Ancients of Days. Shortly after his departure from Salvington there did appear in the Uversa broadcasts this significant statement: “There arrived today an unannounced and unnumbered ascendant pilgrim of mortal origin from the universe of Nebadon, certified by Immanuel of Salvington and accompanied by Gabriel of Nebadon. This unidentified being presents the status of a true spirit and has been received into our fellowship.”

만일 너희가 오늘 유버사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이븐토드가 그곳에 머무는 날들을 차근차근 열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독특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이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는 유버사에서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 필사자는, 적어도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영(靈) 단계와 똑같은 뛰어난 개인성으로, 오르본톤 표준 시간 11년 기간 동안 유버사에서 살았고 그리고 기능하였다. 이 존재는 오르본톤의 여러 지역우주들로부터 오는 자기 동료들과 공통점을 갖는 하나의 영(靈) 필사자로서의 임무배정을 받아들이고 의무를 수행하였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동료로서 시험을 받고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그는 자기 상급자들의 자신감과 신뢰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한편, 어김없이 자기 동료 영들의 존중과 충성스러운 찬미를 받았다.

119:5.2 (1314.5) If you should visit Uversa today, you would hear the recounting of the days when Eventod sojourned there, this particular and unknown pilgrim of time and space being known on Uversa by that name. And this ascending mortal, at least a superb personality in the exact likeness of the spirit stage of the ascending mortals, lived and functioned on Uversa for a period of eleven years of Orvonton standard time. This being received the assignments and performed the duties of a spirit mortal in common with his fellows from the various local universes of Orvonton. In “all points he was tested and tried, even as his fellows,” and on all occasions he proved worthy of the confidence and trust of his superiors, while he unfailingly commanded the respect and loyal admiration of his fellow spirits.

구원자별에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 영 순례자의 생애를 함께 따라다녔는데, 가브리엘의 현존으로 보아 번호가 없고 겸손한 이 순례자 영이 우리들의 지역우주의 증여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필사자 진화의 한 단계의 임무를 실현한 미가엘의 이 첫 번째 출현은 네바돈 전체를 짜릿하게 하고 매혹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듣고 있었지만 그 때에서야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충만하게 성숙되고 완전하게 훈련된 영 필사자로서 그리고 하보나를 향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를 집단이 진출할 때까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계속하는 존재로 유버사에 출현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와 대화를 나누었고, 곧 가브리엘과 함께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예

119:5.3 (1315.1) On Salvington we followed the career of this spirit pilgrim with consummate interest, knowing full well, by the presence of Gabriel, that this unassuming and unnumbered pilgrim spirit was none other than the bestowed ruler of our local universe. This first appearance of Michael incarnated in the role of one stage of mortal evolution was an event which thrilled and enthralled all Nebadon. We had heard of such things but now we beheld them. He appeared on Uversa as a fully developed and perfectly trained spirit mortal and, as such, continued his career up to the occasion of the advancement of a group of ascending mortals to Havona; whereupon he held converse with the Ancients of Days and

식 없이 유버사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구원자별에 있는 자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증여를 마치기 전까지는, 미가엘이 가장 높은 멜기세덱 조직으로부터 아래로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의 삶과 피로 이루어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속한 다양한 계층의 우주 개인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멜기세덱 학교들은 미가엘이 언젠가 육신을 입은 하나의 필사자로 육신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증여를 위한 가능한 기법에 대해 많은 추측이 발생하였다. 그 미가엘은 지역우주와 초우주 전체를 망라하는 모든 길의 창조체 진보 전체 계획에 새로운 제공하고 이익을 증대시킨 상승하는 필사자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이미 수행하였다.

계속적인 이 증여들의 기법은 아직도 하나의 신비로 남아있다. 심지어는 가브리엘도 파라다이스 아들이며 우주 창조자인 이 분이 자기 자신에게 종속된 창조체들 중의 하나의 삶을 살고 그 개인성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제 6 장. 여섯 번째 증여

구원자별 전체가 하나의 임박한 증여의 준비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미가엘은 체류자들을 본부 행성에 소집하였으며, 육신화 계획의 남은 부분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섯 번째 별자리의 본부 행성에 있는 지고자(至高者) 아버지들의 법정에서 한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구원자별을 곧 떠나게 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처음으로 들었다.

여섯 번째 증여를 위해 구원자별을 떠나기 전에, 미가엘은 모여 있는 그 구체의 거주민들에게 연설을 하였고 모두가 충분히 지켜보는 가운데 떠났는데, 단 한 명의 세라핌천사와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만이 동행하였다. 그 우주에 대한 관리가 다시 임마누엘에게 위임되는 동안, 보다 멀리 미치는 행정-관리적 책임이 주어졌다.

미가엘은 5번 별자리의 본부에 나타났는데 상승하는 지위의 충만하게-성장한 모론시아 필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번호가 없는 이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미가엘의 증여 체험 중에

immediately, in the company of Gabriel, took sudden and unceremonious leave of Uversa, appearing shortly thereafter in his accustomed place on Salvington.

119:5.4 (1315.2) Not until the completion of this bestowal did it finally dawn upon us that Michael was probably going to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his various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from the highest Melchizedeks right on down to the mortals of flesh and blood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About this time the Melchizedek colleges began to teach the probability of Michael's sometime incarnating as a mortal of the flesh, and there occurred much speculation as to the possible technique of such an inexplicable bestowal. That Michael had in person performed in the role of an ascending mortal lent new and added interest to the whole scheme of creature progression all the way up through both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119:5.5 (1315.3) Still, the technique of these successive bestowals remained a mystery. Even Gabriel confesses that he does not comprehend the method whereby this Paradise Son and universe Creator could, at will, assume the personality and live the life of one of his own subordinate creatures.

6. THE SIXTH BESTOWAL

119:6.1 (1315.4) Now that all Salvington was familiar with the preliminaries of an impending bestowal, Michael called the sojourners on the headquarters planet together and, for the first time, unfolded the remainder of the incarnation plan, announcing that he was soon to leave Salvington for the purpose of assuming the career of a morontia mortal at the courts of the Most High Fathers on the headquarters planet of the fifth constellation. And then we heard for the first time the announcement that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would be made on some evolutionary worl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119:6.2 (1315.5) Before leaving Salvington for the sixth bestowal, Michael addressed the assembled inhabitants of the sphere and departed in full view of everyone, accompanied by a lone seraphim and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Nebadon. While the direction of the universe had again been intrusted to Immanuel, there was a wider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119:6.3 (1315.6) Michael appeared on the headquarters of constellation five as a full-fledged morontia mortal of ascending status. I regret that I am forbidden to reveal the details of this unnumbered morontia mortal's career, for it wa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and amazing

서, 심지어는 유란시아에서 가졌던 극적이고 비참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 것들 중에서 가장 색다르고 놀라운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받음에 있어서 나에게 부과된 많은 제한들 중에 하나는 미가엘이 엔단탐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가진 이 놀라운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미가엘이 이 모론시아 증여로부터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의 창조체가 되었었다는 것, 우주 주권자가 자신의 영역들 안에 있는 창조된 지능체의 가장 낮은 형태에게도 친구가 되며 동정심 많은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주 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창조체의 관점에 대한 이러한 진보적 성취를 우리는 이미 유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의 완성 이후에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유란시아에서의 목수의 아들의 생애로부터 그가 돌아왔을 때 더욱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미가엘이 모론시아 증여로부터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가브리엘로부터 미리 듣고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별에서 적절한 환영식을 준비하였다. 수백 수천만의 존재들이 네바돈의 별자리 본부 세계들로부터 모였으며, 구원자별에 가까운 세계들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었다. 자기 창조체들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관심을 가졌던 주권자를 환영하고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많은 연설들에 대한 답으로 그는 오직 이렇게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나는 오로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자기 창조체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납득하고자 하는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가엘이 사람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에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는 자신들의 주권 통치자가 진화적 상승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증여 육신화 하여 그가 머문 모든 별자리의 물질적 세계들로부터 모인 자기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엔단탐에서 활동하였던 많은 업적들에 대해 계속 토의하였다.

제 7 장.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

수만 년 동안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를 고대해 왔다. 가브리엘은 최종적인 이 증여가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왔었지만, 우리는 최고점에 달한 이 모험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미가엘이 자신의 마지막 증여 무대로 유란시아를 선택하였다는 공개적인 발표는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에 대해 우리가 배운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35,000년이 넘도록, 너희가 사는 세계는 전체 우주의 협의회들에서 매우 유명한 자리

epochs in Michael's bestowal experience, not even excepting his dramatic and tragic sojourn on Urantia. But among the many restrictions imposed upon me in accepting this commission is one which forbids my undertaking to unfold the details of this wonderful career of Michael as the morontia mortal of Endantum.

119:6.4 (1316.1) When Michael returned from this morontia bestowal, it was apparent to all of us that our Creator had become a fellow creature, that the Universe Sovereign was also the friend and sympathetic helper of even the lowest form of created intelligence in his realms. We had noted this progressive acquirement of the creature's viewpoint in universe administration before this, for it had been gradually appearing, but it became more apparen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orontia mortal bestowal, even still more so after his return from the career of the carpenter's son on Urantia.

119:6.5 (1316.2) We were informed in advance by Gabriel of the time of Michael's release from the morontia bestowal, and accordingly we arranged a suitable reception on Salvington. Millions upon millions of beings were assembled from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orlds of Nebadon, and a majority of the sojourners on the worlds adjacent to Salvington were gathered together to welcome him back to the rulership of his universe. In response to our many addresses of welcome and expressions of appreciation of a Sovereign so vitally interested in his creatures, he only replied: "I have simply been about my Father's business. I am only doing the pleasure of the Paradise Sons who love and crave to understand their creatures."

119:6.6 (1316.3) But from that day down to the hour when Michael embarked upon his Urantia adventure as the Son of Man, all Nebadon continued to discuss the many exploits of their Sovereign Ruler as he functioned on Endantum as the bestowal incarnation of a morontia mortal of evolutionary ascension, being in all points tested like his fellows assembled from the material worlds of the entire constellation of his sojourn.

7.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119:7.1 (1316.4)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we all looked forward to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of Michael. Gabriel had taught us that this terminal bestowal would be mad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we were wholly ignorant of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this culminating adventure.

119:7.2 (1316.5) The public announcement that Michael had selected Urantia as the theater for his final bestowal was made shortly after we learned about the default of Adam and Eve. And thus, for more than thirty-five thousand years, your world

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란시아 증여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서도 (육신화의 신비는 제외하고) 비밀에 부쳐진 것이 없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최종적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최극의 우주 주권자로서 구원자별로 돌아오기까지, 너희의 작지만 높은 명성을 얻은 세계에서 발산되는 모든 것들이 최대한으로 우주에 선전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믿고자 하였던 반면, 그 사건 자체가 발생될 때까지, 미가엘이 영역의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지구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는 그가 증여되기로 선택한 그 개인성 집단의 충만하게 성장한 개별존재로 항상 나타났었으며,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방송이 구원자별로부터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며 친구인 그가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로 증여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한에 있어서 명백하게 위협을 받는,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최종적인 필사자 증여가 네바돈 우주의 명백한 최극 주권자로서의 영원한 지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구 시간으로 3분의 1 세기(世紀) 동안 이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관심이 유란시아로 집중되었다. 모든 지능체들은 마지막 증여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 반란과 그리고 유란시아에서의 칼리가스티아 배반에 대해 오랜 동안 알고 있었었기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통치자가, 미친한 형태로서 그리고 필사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육신화하려고 낮추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일어나게 될 투쟁의 정도를 잘 납득하고 있었다.

유대인 아기인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특별한 아기가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 지역우주의 모든 사물들과 존재들의 창조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육신화였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착상되어 잉태되었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 형태로서 신(神)이 육신화된 이 신비는 이 세상에서의 자연적인 기원과는 달리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원속에서조차도 너희는 자신의 창조체들과 비슷한 형태로 창조자가 육신화되었던 그 기법과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들들의 비밀이며, 그러한 신비들은 증여 체험을 통과한 그 신성한 아들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알려진다.

지구에 있는 어떤 현자(賢者)들은 미가엘의 임박한 도래를 알고 있었다. 한 세계가 다른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을 가진 이 현자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세라핌천사는 중도 창조체들을 통하여 한 집단의 갈대아 사제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의 영도자는 아드논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들 하느님의 사람들은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

occupied a very conspicuous place in the councils of the entire universe. There was no secrecy (aside from the incarnation mystery) connected with any step in the Urantia bestowal. From first to last, up to the final and triumphant return of Michael to Salvington as supreme Universe Sovereign, there was the fullest universe publicity of all that transpired on your small but highly honored world.

119:7.3 (1316.6) While we believed that this would be the method, we never knew, until the time of the event itself, that Michael would appear on earth as a helpless infant of the realm. Therefore had he always appeared as a fully developed individual of the personality group of the bestowal selection, and it was a thrilling announcement which was broadcast from Salvington telling that the babe of Bethlehem had been born on Urantia.

119:7.4 (1316.7) We then not only realized that our Creator and friend was taking the most precarious step in all his career, apparently risking his position and authority on this bestowal as a helpless infant, but we also understood that his experience in this final and mortal bestowal would eternally enthrone him as the undisputed and supreme sovereign of the universe of Nebadon. For a third of a century of earth time all eyes in all parts of this local universe were focused on Urantia. All intelligences realized that the last bestowal was in progress, and as we had long known of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and of the Caligastia disaffection on Urantia, we well understood the intensity of the struggle which would ensue when our ruler condescended to incarnate on Urantia in the humble form and likeness of mortal flesh.

119:7.5 (1317.1) Joshua ben Joseph, the Jewish baby, was conceived and was born into the world just as all other babies before and since *except* that this particular baby was the incarnation of Michael of Nebadon, a divine Son of Paradise and the creator of all this local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And this mystery of the incarnation of Deity within the human form of Jesus, otherwise of natural origin on the world, will forever remain unsolved. Even in eternity you will never know the technique and method of the incarnation of the Creator in the form and likeness of his creatures. That is the secret of Sonarington, and such mysteries ar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ose divine Sons who have passed through the bestowal experience.

119:7.6 (1317.2) Certain wise men of earth knew of Michael's impending arrival. Through the contacts of one world with another, these wise men of spiritual insight learned of the forthcoming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And the seraphim did, through the midway creatures, make announcement to a group of Chaldean priests whose leader was Ardnon. These men of God

하였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배속되었던 세라핌천사에 의해 아드논과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예수의 인간 부모들은 그들 시대와 세대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육신화된 이 하느님의 아들은 그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그 종족과 시대의 어린이들이 겪는 평범한 풍습 속에서 자라났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이야기, 너희가 사는 세계에 창조자 아들이 필사 존재로 증여되었다는 내용은 이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이다.

visited the newborn child in the manger. The only supernatural event associated with the birth of Jesus was this announcement to Ardnnon and his associates by the seraphim of former attachment to Adam and Eve in the first garden.

119:7.7 (1317.3) Jesus' human parents were average people of their day and generation, and this incarnated Son of God was thus born of woman and was reared in the ordinary manner of the children of that race and age.

119:7.8 (1317.4) The story of Michael's sojourn on Urantia, the narrative of the mortal bestowal of the Creator Son on your world, is a matter beyond the scope and purpose of this narrative.

제 8 장. 증여 이후의 미가엘의 신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증여된 후에 그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창조한 지역우주의 확립된 지도자로서 우주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가 구원자별로 돌아옴에 따라, 사람의 아들이며 하느님의 아들인 미가엘은 네바돈의 확고한 통치자로 선포되었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여덟 번째 선포가 유버사로부터 도착하였고, 또한 파라다이스로부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선언문이 도래하였는데 하느님과 사람의 연관인이 분을 그 우주의 유일한 수장(首長)으로 임명하는 내용이었고 구원자별에 주둔한 연합으로 늘 계신이에 의해 파라다이스로 돌아가라는 자신의 뜻을 표명하라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별자리 본부에 있는 중심으로 늘 계신이 역시 지고자들의 혐의회로부터 물리나라는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미가엘은 조연과 협조에 있어서 삼위일체 아들들의 철수에 동의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을 구원자별에 모아놓고 그들이 네바돈에서 언제까지나 임무를 맡아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 요청에 따르고 싶다는 바램을 파라다이스에 있는 자신들의 감독자들에게 표명하였으며, 그로부터 잠시 후에 중앙우주에 소속된 이들 아들들을 네바돈의 미가엘의 법정에서 언제까지나 배속시킨다는 파라다이스 분리 명령이 발효되었다.

미가엘의 증여 생애가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창조한 그 우주에서의 자신의 최극 권세가 최종적으로 확립되기까지 거의 10억 년이 소요되었다. 미가엘은 창조자로 태어났고, 행정-관리자로 교육받았으며, 집행자로 훈련되었지만, 체험에 의해 자신의 주권을 얻도록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는 작은 세계는 각각의 파라다이스 창조자 아들이 자신이 직접 만드는 우주에 대한 무제한적 통제와 지도권을 위해 필요한 체험을 미가엘이 성취한 경기장으로 네바돈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너희가 지역우주를 상승하게 되면, 미가엘의 이전 증여들에 관계하였던 개인성들의 이상들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8. MICHAEL'S POSTBESTOWAL STATUS

119:8.1 (1317.5) After Michael's final and successful bestowal on Urantia he was not only accepted by the Ancients of Days as sovereign ruler of Nebadon, but he was also recognized by the Universal Father as the established director of the local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Upon his return to Salvington this Michael,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was proclaimed the settled ruler of Nebadon. From Uversa came the eighth proclamation of Michael's sovereignty, while from Paradise came the joint pronouncemen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constituting this union of God and man sole head of the universe and directing the Union of Days stationed on Salvington to signify his intention of withdrawing to Paradise. The Faithfuls of Days on the constellation headquarters were also instructed to retire from the councils of the Most Highs. But Michael would not consent to the withdrawal of the Trinity Sons of counsel and co-operation. He assembled them on Salvington and personally requested them forever to remain on duty in Nebadon. They signified their desire to comply with this request to their directors on Paradise, and shortly thereafter there were issued those mandates of Paradise divorcement which forever attached these Sons of the central universe to the court of Michael of Nebadon.

119:8.2 (1318.1) It required almost one billion years of Urantia time to complete the bestowal career of Michael and to effect the final establishment of his supreme authority in the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Michael was born a creator, educated an administrator, trained an executive, but he was required to earn his sovereignty by experience. And thus has your little world become known throughout all Nebadon as the arena wherein Michael completed the experience which is required of every Paradise Creator Son before he is given unlimited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universe of his own making. As you ascend the

자신의 창조체 증여들을 완결함에 있어서, 미가엘은 자기 자신의 주권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극자 하느님의 진화하는 주권을 증강시키기도 하였다. 이 증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창조자 아들은 창조체 개인성의 다양한 본성들로 하강하여 탐험하는 일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다양하게 변화가 많은 뜻에 대한 계시들을 성취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합성적인 합일은 최극 창조자들에 의해 계시된 대로, 최극존재의 뜻에 대한 계시이다.

신(神)들의 다양한 이들 의지 양상들은 일곱 주(主) 영들의 달리하는 본성들 속에서 영원히 개인성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미가엘 증여들이 이러한 신성 현시활동 중의 하나에 대한 독특한 계시로 있었다. 멜기세덱 증여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연합된 뜻을, 라노난덱 증여 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현시하였다; 아담의-증여 시에는 아버지와 영의 뜻을, 세라핌천사 증여 시에는 아들과 영의 뜻을 계시하였다; 유버사의 필사자 증여에서는 공동 행위자의 뜻을,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을 묘사하였다; 유란시아의 물질적 증여에서는 심지어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한 필사자로서 우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다.

일곱 번에 걸친 이 증여들의 완성은 미가엘의 최극 주권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또한 네바돈에서의 최극자의 주권을 위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가엘의 증여들 중에 어떤 것도 최극자 하느님을 계시하지 않았지만, 일곱 번에 걸친 증여들 전체 총합은 최극존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네바돈 계시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으로 하강하는 체험에서, 미가엘은 현시가능성의 부분성으로부터, 유한활동의 최극위 그리고 아(亞)절대적 기능을 위한 자신 잠재의 해방의 최종까지 상승하는 체험을 공존으로 체험하였다.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시간-공간 창조자이지만, 칠중 주(主) 아들인 미가엘은 삼위일체 궁극자를 구성하는 신성한 무리단들의 한 구성원이다.

삼위일체의 일곱 주(主) 영을 계시하는 체험을 통과함에 있어서, 창조자 아들은 최극자의 뜻을 계시하는 체험을 통과하였다. 최극위의 뜻에 대한 계시자로 활동함에 있어서, 미가엘은 다른 모든 주(主)아들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최극자와 영원히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이 우주 시대에 그는 최극자를 계시하며 최극위의 주권을 실재화구현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다음 우주 시대에 우리는 그가 외부 공간의 우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최초의 체험적 삼위일체 속에 최극존재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local universe, you will learn more about the ideals of the personalities concerned in Michael's previous bestowals.

119:8.3 (1318.2) In completing his creature bestowals, Michael was not only establishing his own sovereignty but also was augmenting the evolving sovereignty of God the Supreme. In the course of these bestowals the Creator Son not only engaged in a descending exploration of the various natures of creature personality, but he also achieved the revelation of the variously diversified wills of the Paradise Deities, whose synthetic unity, as revealed by the Supreme Creators, is revelatory of the will of the Supreme Being.

119:8.4 (1318.3) These various will aspects of the Deities are eternally personalized in the differing natur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each of Michael's bestowals was peculiarly revelatory of one of these divinity manifestations. On his Melchizedek bestowal he manifested the united will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n his Lanonandek bestowal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on; on the Adamic bestowal he revealed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on the seraphic bestowal the will of the Son and the Spirit; on the Uversa mortal bestowal he portrayed the will of the Conjoint Actor, on the morontia mortal bestowal the will of the Eternal Son; and on the Urantia material bestowal he lived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even as a mortal of flesh and blood.

119:8.5 (1318.4) The completion of these seven bestowals resulted in the liberation of Michael's supreme sovereignty and also in the creation of the possibility for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Nebadon. On none of Michael's bestowals did he reveal God the Supreme, but the sum total of all seven bestowals is a new Nebadon revelation of the Supreme Being.

119:8.6 (1318.5) In the experience of descending from God to man, Michael was concomitantly experiencing the ascent from partiality of manifestability to supremacy of finite action and finality of the liberation of his potential for absonite function. Michael, a Creator Son, is a time-space creator, but Michael, a sevenfold Master Son, is a member of one of the divine corps constituting the Trinity Ultimate.

119:8.7 (1318.6) In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revealing the Seven Master Spirit wills of the Trinity, the Creator Son has pas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revealing the will of the Supreme. In functioning as a revelator of the will of Supremacy, Michael, together with all other Master Sons, has identified himself eternally with the Supreme. In this universe age he reveals the Supreme and participates in the actu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Supremacy. But in the next universe age we believe he will be collaborating with the Supreme Being in the first experiential Trinity for and in the

유란시아는 네바돈 전체의 정서를 일으키는 성지(聖地)이며, 천만 거주세계의 우두머리이며, 모든 네바돈에서의 주권자, 영역에 대한 멜기세덱 사명활동자, 체계 구원자, 아담의-구세주, 세라핌 천사 연관-동료, 상승하는 영들의 친구, 모론시아 진보자, 필사 육신의 모습을 한 사람의 아들, 그리고 유란시아의 행성영주, 그리스도 미가엘의 필사자 고향이다. 그리고 너희 기록이,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의 마지막 증여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로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일곱 번에 걸친 증여들을 묘사하는 이 글은 63번째로 전해진 일련의 글에 해당하는데,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지구에 나타난 그 때까지 유란시아의 역사를 서술하는 여러 개인성들에 의해 후원되었다. 이 글들은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는 12명의 네바돈 위원회에 의해 공인되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였고 그것들을 영어로 기록하였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서기 1935년에 우리들의 상급자들에 의해 인가된 기법에 의해서였다.]

universes of outer space.

119:8.8 (1319.1) Urantia is the sentimental shrine of all Nebadon, the chief of ten million inhabited worlds, the mortal home of Christ Michael, sovereign of all Nebadon, a Melchizedek minister to the realms, a system savior, an Adamic redeemer, a seraphic fellow, an associate of ascending spirits, a morontia progressor, a Son of Ma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your record tells the truth when it says that this same Jesus has promised sometime to return to the world of his terminal bestowal, the World of the Cross.

119:8.9 (1319.2) [This paper, depicting the seven bestowals of Christ Michael, is the sixty-third of a series of presentations, sponsored by numerous personalities, narrating the history of Urantia down to the time of Michael's appearance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se papers were authorized by a Nebadon commission of twelve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Mantutia Melchizedek. We indited these narratives and put them in the English language, by a technique authorized by our superiors, in the year A.D. 1935 of Urantia time.]

유란시아 책

부 IV. 예수와 생애와 가르침

제 120 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증여

⇨ 119

유란시아 책

12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0 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증여

색션

소개

제 1 장. 7차 증여 임무

제 2 장. 증여의 한계

제 3 장. 이어진 조연과 충고

제 4 장.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듦

PAPER 120

THE BESTOWAL OF MICHAEL ON
URANTI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2. The Bestowal Limitations

3. Further Counsel and Advice

4. The Incarnation — Making Two One

소개

계시 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나멜기세텍은, 미가엘이 필사 사람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왔을 때의 일생을 다시 기술하는 일을 감독하고, 창조자 아들이 그에게 주어진 우주로의 마지막 증여 위상에 착수하기 위해 유란시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몇 가지 특정한 사건들을 밝힐 권한을 가브리엘로부터 위임 받았다. 그가 자신이 창조한 지능존재들을 찾아서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창조체들 속에 그 자신을 증여하는 것은, 모든 창조자 아들이 그의 자아-제작의 사물과 존재들의 우주에 대해 충분하고 그리고 최극의 통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代價)이다.

내가 지금 기술하고자 하는 사건들 이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가 창조한 다양한 지능창조체들 중에서 여섯 가지 다른 계층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미 여섯 번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지능적인 의지적 창조체들 중 가장 낮은 계층인 필사 사람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기 위해, 그리고, 그 영역의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 우주들의 우주의 신성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우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INTRODUCTION

120:0.1 (1323.1) ASSIGNED by Gabriel to supervise the restatement of the life of Michael when on Urantia an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 the Melchizedek director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intrusted with this task, am authorized to present this narrative of certain events which immediately preceded the Creator Son's arrival on Urantia to embark upon the terminal phase of his universe bestowal experience. To live such identical lives as he imposes upon the intelligent beings of his own creation, thus to bestow himself in the likeness of his various orders of created beings, is a part of the price which every Creator Son must pay for the full and supreme sovereignty of his self-mad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120:0.2 (1323.2) Before the events I am about to delineate, Michael of Nebadon had bestowed himself six times after the similitude of six differing orders of his diverse creation of intelligent beings. Then he prepared to descend upon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 lowest order of his intelligent will creatures, and, as such a human of the material realm, to execute the final act in the drama of the acquirement of universe sovereignty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s of the divine Paradise Rul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증여들 각각의 그 과정에서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중 한 집단의 유한한 체험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더 큰 공헌을 하게 될 파라다이스 협력체 안에서, 자아-제작한 우주의 주권을 그에게 성립시키는 일에 한 걸음 더 기여하게 될 파라다이스 협동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체험도 함께 획득하였다. 지역우주의 지나간 모든 과거 시간에 있어서, 미가엘은 어느 순간이라도 창조자 아들로써의 개인적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창조자 아들의 자격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건 안에서는, 연관-동료인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과 임마누엘은 우주로부터 떠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창조자 아들로써, 단순히 그 자신의 고립된 권한만을 가지고 네바돈을 통치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는 언젠가 최극존재의 고양된 통치의 특징이 될 통찰력의 완전성과 실행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우주들을 통치하고 그것의 관련사들을 관리-운영할 분별화된 우주 지위상의 그러한 높은 경지까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한 협동적 순종 속에서 실제 체험을 통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였다. 그는 창조자 아들로써의 통치의 완전성이 아니라, 최극존재의 우주 지혜와 신성한 체험의 체현을 이룸으로써, 관리-행정의 최극위를 열망하였다.

따라서, 미가엘은 그의 우주 창조체들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이 일곱 번 증여를 이룩함에 있어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그는 모든 창조자 아들이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창조체 납득에 있어서의 체험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창조자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일곱 차례의 우주-창조체 증여들을 모두 마친 후에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극 대표자 자격으로 통치할 수 있다. 둘째로, 그는 지역우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리-행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대 권한을 대표하는 특권을 원하였다. 따라서 미가엘은 각각의 우주적 증여 기간을 체험하는 동안,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인성들로 구성된 다양한 관계적-연합들에 의해 다양하게 조성된 뜻들에 대하여,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실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첫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영의 관계적-연합된 뜻에; 두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세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에; 네 번째 증여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에; 다섯 번째 증여에서는 무한한 영(靈)의 뜻에; 여섯 번째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에; 그리고 일곱 번째이자 최종적인 증여인 유란시아에서의 증여가 있을 동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그의 개인적 주권 안에, 자신의 지역우주 창조체들에 대한 납득하는 체험과 우주적 창조자들의 칠중 위상들의 신성한 뜻을 병합시켰다. 그렇게 해서, 그의 관리-행정은 모든

120:0.3 (1323.3) In the course of each of these preceding bestowals Michael not only acquired the finite experience of one group of his created beings, but he also acquired an essential experience in Paradise co-operation which would, in and of itself, further contribute to constituting him the sovereign of his self-made universe. At any moment throughout all past local universe time, Michael could have asserted personal sovereignty as a Creator Son and as a Creator Son could have ruled his universe after the manner of his own choosing. In such an event, Immanuel and the associated Paradise Sons would have taken leave of the universe. But Michael did not wish to rule Nebadon merely in his own isolated right, as a Creator Son. He desired to ascend through actual experience in co-operative subordination to the Paradise Trinity to that high place in universe status where he would become qualified to rule his universe and administer its affairs with that perfection of insight and wisdom of execution which will sometime be characteristic of the exalted rule of the Supreme Being. He aspired not to perfection of rule as a Creator Son but to supremacy of administration as the embodiment of the universe wisdom and the divine experience of the Supreme Being.

120:0.4 (1324.1) Michael, therefore, had a double purpose in the making of these seven bestowals upon the various orders of his universe creatures: First, he was completing the required experience in creature understanding which is demanded of all Creator Sons before they assume complete sovereignty. At any time a Creator Son may rule his universe in his own right, but he can rule as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only after passing through the seven universe-creature bestowals. Second, he was aspiring to the privilege of representing the maximum authority of the Paradise Trinity which can be exercised in the direct and personal administration of a local universe. Accordingly, did Michael, during the experience of each of his universe bestowals, successfully and acceptably voluntarily subordinate himself to the variously constituted wills of the diverse associations of the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That is, on the first bestowal he was subject to the combined will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n the second bestowal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on; on the third bestowal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pirit; on the four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Son and the Spirit; on the fif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Infinite Spirit; on the sixth bestowal to the will of the Eternal Son; and during the seventh and final bestowal, on Urantia, to the will of the Universal Father.

120:0.5 (1324.2) Michael, therefore, combines in his personal sovereignty the divine will of the sevenfold phases of the universal Creators with the understanding experience of his local universe

임의적인 권력 인수는 상실하였을지라도, 최고로 가능한 힘과 권한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의 힘이 무제한적인 것은 파라다이스 신(神)들과의 체험적인 관계적-연합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권한은 우주의 창조체들과의 유사한 실제적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주권은 파라다이스 신(神)의 일곱 단계 관점과, 시간과 공간 세계에 속한 창조체들의 관점을 동시에 하나로 체현한 것이므로 최극이다.

마지막 증여의 시기가 결정되고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행성이 선택되자,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의례적인 증여준비 회의를 가졌으며,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자 파라다이스의 조연자인 임마누엘 앞으로 나아갔다. 미가엘은 이제 가브리엘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은 우주 관리-행정의 나머지 모든 힘들을 임마누엘의 보호관리에 배속시켰다. 미가엘이 유란시아 육신화를 위해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임마누엘은 그의 유란시아 증여 기간 동안 그의 우주의 보호관리를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곧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필사자로서 현시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의 육신화 과정의 안내 역할을 하게 될 증여 위원회에게 증여의 조언을 계속하였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증여를 수행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자 아들이 오직 우주의 주권 획득만을 위해서였다면 이 육신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다양한 뜻과의 협동적 역할이 포함된 최극자의 계시 계획에 이미 동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그의 주권은 최극자 안에서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신(神)의 칠중(七重)의 지를 모두 실제적으로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여섯 차례의 증여는 다양한 파라다이스 신(神)들과 그들의 관계적-연합의 개인적 대표자들에 의해 지시를 받았었다; 이제는 우주 아버지를 대신하여 네바돈 지역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로 일하는 연합으로 늘 계신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에, 이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종속하였던 이 위대한 창조자 아들의 자진하는 마음의 결과로, 즉각적인 유익과 커다란 보상이 주어졌다. 그러한 연관에 따르는 순종을 해 내려는 이 결정에 의해, 미가엘은 그의 육신화에서 필사 사람의 본성뿐만 아니라, 만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까지도 체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자신이 유란시아 증여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의 우주를 임마누엘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충만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행정을 행사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뿐만 아니라, 또한 초우주의 옛적으로 늘

creatures. Thus has his administration become representative of the greatest possible power and authority although divested of all arbitrary assumptions. His power is unlimited since it is derived from experienced association with the Paradise Deities; his authority is unquestioned inasmuch as it was acquired through actual experience in the likeness of universe creatures; his sovereignty is supreme since it embodie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sevenfold viewpoint of Paradise Deity with the creature viewpoint of time and space.

120:0.6 (1324.3) Having determined the time of his final bestowal and having selected the planet whereon this extraordinary event would take place, Michael held the usual prebestowal conference with Gabriel and then presented himself before his elder brother and Paradise counselor, Immanuel. All powers of universe administration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conferred upon Gabriel, Michael now assigned to the custody of Immanuel. And just before Michael's departure for the Urantia incarnation, Immanuel, in accepting the custody of the universe during the time of the Urantia bestowal, proceeded to impart the bestowal counsel which would serve as the incarnation guide for Michael when he would presently grow up on Urantia as a mortal of the realm.

120:0.7 (1324.4)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Michael had elected to execute this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ubject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The Creator Son required instructions from no one in order to effect this incarnation for the sole purpose of achieving universe sovereignty, but he had embarked upon a program of the revelation of the Supreme which involved co-operative functioning with the diverse wills of the Paradise Deities. Thus his sovereignty, when finally and personally acquired, would actually be all-inclusive of the sevenfold will of Deity as it culminates in the Supreme. He had, therefore, six times previously been instructed by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e various Paradise Deities and associations thereof; and now he was instructed by the Union of Days, ambassador of the Paradise Trinity to the local universe of Nebadon, acting on behalf of the Universal Father.

120:0.8 (1325.1) There were immediate advantages and tremendous compensations resultant from the willingness of this mighty Creator Son once more voluntarily to subordinate himself to the will of the Paradise Deities, this time to that of the Universal Father. By this decision to effect such associative subordination, Michael would experience in this incarnation, not only the nature of mortal man, but als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And further, he could enter upon this unique bestowal with the complete assurance, not only that Immanuel would exercise the full authority of the

계신들이 역시 그 전체 증여 기간에 두루 그의 영역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위안을 주는 지식을 가지고 이 독특한 증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일곱 번째 증여 위원회에 출두했을 때 있었던 중대한 상황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후에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미가엘)가 된 우주의 통치자가 증여되기 이전에, 임마누엘이 그에게 지시한 것으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제 1 장. 7차 증여 임무

“나의 창조자 형제여, 나는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를 지켜보려고 한다. 너는 이전의 여섯 차례의 임무를 매우 신실하고 완전하게 잘 실행하였으며, 나는 네가 이번의 최종적인 주권 증여 역시 똑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제까지는 네가 선택한 그 부류의 충만하게 성숙된 존재로서, 증여될 그 구체에 나타났었다. 이제 너는 너의 선택에 의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행성인 유란시아에, 충만하게 성숙된 필사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도움도 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네가 나타나게 되었다. 나의 동지여, 이는 네게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 너는 증여에서의 충분한 대가를 치르려는 것이며, 창조자가 창조체들과 같은 형상으로서 육신화 안에서 완벽한 깨우침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전에 네가 증여되었던 각각의 경우에 두루, 너는 세 분의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뜻과 그들의 신성한 상호-연관들에게 너 자신을 복종시킬 것을 자발적으로 택하였었다. 전에 있었던 너의 증여들에서 너는 최극자의 뜻의 일곱 위상들 중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개인적 뜻을 제외한 전체에 복종해 왔다. 이제 네가 일곱 번째 증여에 두루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선택하였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개인적 대리자로서, 너의 육신화 기간 동안 너 대신 너의 우주에 대한 분별 불가적 관할권을 맡는다.

“유란시아에서의 증여에 들어감에 있어서, 너는 네가 창조한 어느 창조체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초(超)행성적 지원과 특별한 도움을 자진해서 거부하였다. 네바돈에 속하는 네가 창조한 자녀들이 그들의 우주 생애에 두루 안전한 행위성을 위하여 네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이제 너의 이어지는 필사자 생애의 드러나지 않은 변화들에 두루 안전한 행위성을 위하여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이 증여의 체험을 완결하게 될 때에는, 네가 그들의 지역우주의 창조자이자 아버지로서, 네 모든 창조체들이 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에게 네가 그토록 한결같이 요구하는 신앙-신뢰

Paradise Father in the administration of his universe during his absence on the Urantia bestowal, but also with the comforting knowledge that the Ancients of Days of the superuniverse had decreed the safety of his realm throughout the entire bestowal period.

120:0.9 (1325.2) And this was the setting of the momentous occasion when Immanuel presented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And from this prebestowal charge of Immanuel to the universe ruler who subsequently became Jesus of Nazareth (Christ Michael) on Urantia, I am permitted to present the following excerpts:

1. THE SEVENTH BESTOWAL COMMISSION

120:1.1 (1325.3) “My Creator brother, I am about to witness your seventh and final universe bestowal. Most faithfully and perfectly have you executed the six previous commissions, and I entertain no thought but that you will be equally triumphant on this, your terminal sovereignty bestowal. Heretofore you have appeared on your bestowal spheres as a fully developed being of the order of your choosing. Now you are about to appear upon Urantia, the disordered and disturbed planet of your choice, not as a fully developed mortal, but as a helpless babe. This, my comrade, will be a new and untried experience for you. You are about to pay the full price of bestowal and to experience the complete enlightenment of the incarnation of a Creator in the likeness of a creature.

120:1.2 (1325.4) “Throughout each of your former bestowals you have voluntarily chosen to subject yourself to the will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and their divine interassociations. Of the seven phases of the will of the Supreme you have in your previous bestowals been subject to all but the personal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Now that you have elected to be wholly subject to your Father’s will throughout your seventh bestowal, I, as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our Father, assume the unqualified jurisdiction of your universe for the time of your incarnation.

120:1.3 (1325.5) “In entering upon the Urantia bestowal, you have voluntarily divested yourself of all extraplanetary support and special assistance such as might be rendered by any creature of your own creation. As your created sons of Nebadon are wholly dependent upon you for safe conduct throughout their universe careers, so now must you become wholly and unreservedly dependent upon your Paradise Father for safe conduct throughout the unrevealed vicissitudes of your ensuing mortal career. And when you shall have finished this bestowal experience, you will know in very truth the full meaning and the rich significance of that faith-trust which you so unvaryingly require

의 귀중하고 풍요로운 의의(意義)와 선명한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유란시아 증여에 두루, 너는 오직 한 가지 일, 너와 파라다이스 아버지 사이의 중단되지 않는 교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가 증여되는 그 세상, 더 나아가서는 네가 창조한 우주 전체가, 너의 아버지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만유(萬有)의 우주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납득하기 쉬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의 완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너는 오직 유란시아에서 지내는 개인적 일생과 관련한 일들만 염려하면 된다. 나는 네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네가 우주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파라다이스의 확인을 받고, 네가 지금처럼 내게 복종하는 대리자의 권한이 아니라 너의 우주에 대한 최극 힘과 관할권을 나의 지배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너의 우주의 안전과 중단 없는 관리-행정을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맡아보는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도록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확신을 가지고 알겠지만(내가 나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은 파라다이스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충분히 잘 알면서), 너의 자발적 증여 기간에 두루 네바돈 안에서의 모든 영적 위험을 예방하게 될,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명령이 방금 내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린다. 필사 육신화가 시작됨에 따라, 네가 의식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너의 고유한 창조와 조직체의 이 우주에 대한 최극이고 무조건적인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서는 어떤 심각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증여로 네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발생할 어떤 반란의 죄나 폭동을 부추기는 어떤 존재든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제거하라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분별불가하게 내려진 명령을 지니고 있다. 나의 형제여, 나의 현존에 선천적인 그리고 유버사의 사법 명령권에 의해 증강된 파라다이스의 권한의 관점에서 볼 때, 너의 우주와 그것의 충성스러운 창조체들 전체는 네 증여 기간 동안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너는 오직 한 가지 생각—네 우주 안에 있는 지능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향상된 계시—만을 가지고 너의 임무를 진행해도 될 것이다.

“이전의 네 증여들 각각의 경우처럼, 나는 형제-수탁자로서 네 우주 관할권을 받은 자임을 네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네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힘을 장악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하듯이, 그리고 내가 네 대신 그렇게 행하라는 너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든 위임된 권한을 되돌려 받아야 될 적당한 시기라고 네가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너의 것이 된다는 점이다. 너의 증여는 시종일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다. 그 세상에서 필사 육신화가 되었을

all your creatures to master as a part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 with you as their local universe Creator and Father.

120:1.4 (1326.1) “Throughout your Urantia bestowal you need be concerned with but one thing, the unbroken communion between you and your Paradise Father; and it will be by the perfection of such a relationship that the world of your bestowal, even all the universe of your creation, will behold a new and more understandable revelation of your Father and my Father, the Universal Father of all. Your concern, therefore, has only to do with your personal life on Urantia. I will be fully and efficiently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and unbroken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from the moment of your voluntary relinquishment of authority until you return to us as Universe Sovereign, confirmed by Paradise, and receive back from my hands, not the vicegerent authority which you now surrender to me, but, instead, the supreme power over, and jurisdiction of, your universe.

120:1.5 (1326.2) “And that you may know with assurance that I am empowered to do all that I am now promising (knowing full well that I am the assurance of all Paradise for the faithful performance of my word), I announce to you that there has just been communicated to me a mandate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 which will prevent all spiritual jeopardy in Nebadon throughout the period of your voluntary bestowal. From the moment you surrender consciousness, upon the beginning of the mortal incarnation, until you return to us as supreme and unconditional sovereign of this universe of your own creation and organization, nothing of serious import can happen in all Nebadon. In this interim of your incarnation, I hold the orders of the Ancients of Days which unqualifiedly mandate the instantaneous and automatic extinction of any being guilty of rebellion or presuming to instigate insurrection in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you are absent on this bestowal. My brother, in view of the authority of Paradise inherent in my presence and augmented by the judicial mandate of Uversa, your universe and all its loyal creatures will be secure during your bestowal. You may proceed upon your mission with but a single thought — the enhanced revelation of our Father to the intelligent beings of your universe.

120:1.6 (1326.3) “As in each of your previous bestowals, I would remind you that I am recipient of your universe jurisdiction as brother-trustee. I exercise all authority and wield all power in your name. I function as would our Paradise Father and in accordance with your explicit request that I thus act in your stead. And such being the fact, all this delegated authority is yours again to exercise at any moment you may see fit to requisition its return. Your bestowal is, throughout, wholly voluntary. As a mortal incarnate in the realm you

때 너는 천상(天上)에서의 자질들이 없는 상태이었지만, 네가 우주의 권한을 다시 갖고자 결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였던 너의 모든 힘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힘과 권한으로 네 스스로를 복귀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이유들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는 살아있는 그리고 최극의 약속이며, 나의 약속과 현존은 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네 우주의 안전한 관리-행정을 보증한다. 이번 증여를 위하여 네가 구원자별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네바돈에서 전에 세 차례 발생했던 그러한 반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란시아 증여 기간 동안, 네바돈에서의 반란은 그 속에 스스로 절멸되는 자동적 씨앗이 심어질 것이라고 옛적으로 늘 계신이 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네가 최종적이고도 특별한 이 증여로 인해 자리를 비운 동안, 나는(가브리엘과 협동하여) 네 우주에 대한 신실한 관리-행정을 약속 한다; 내가 네게 이 신성한 계시의 임무를 착수하고 그리고 인간을 완전하게 납득하는 이 체험을 겪으라고 너에게 부탁하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며, 네가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속 머무르는 그 신성한 임무에 관하여 진보적으로 자아-의식적이 될 때 땅에서의 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를 인도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언을 너에게 준다:

제 2 장. 증여의 한계

“1. 아들별의 관례에 따라 그리고 그 기법과 일치하여—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나는 너에 의해 수립되었고 가브리엘에 의해 나에게 제출되었던 그 계획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네가 즉시 이 필사자 증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예비해 왔다. 너는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어린아이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교육을 마치게 될 것이며—이 모든 기간 동안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에 따르면—, 네가 결정한대로 유란시아에서의 일생을 살게 될 것이고, 행성에서의 짧은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며, 네 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을 너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 그에게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너의 땅에서의 임무와 우주 계시와는 별도로, 그러나 두 가지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네가 너의 신성한 정체성을 충분히 자아-의식한 후에, 사타니아 체계에서의 루시퍼 반란을 기술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부가적인 임무를 네가 수행할 것과, 네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해야함을 나는 너에게 조언하는 바이다; 따라서 나는, 그 세계의 한 필사 창조체로써, 너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앙-복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연약함 안에서, 이 사악하고 부당한 반란이 시작될 때에 네게 자질로서 부여되었던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완성시키기를 네가 임의적으로 계속 거절해 온 모든 것을 자비롭게 성취하기를 제안한다. 나는 네가 사람의 아들로서,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로서, 그리

are without celestial endowments, but all your relinquished power may be had at any time you may choose to reinvest yourself with universe authority. If you should choose to reinstate yourself in power and authority, remember, it will be wholly for *personal* reasons since I am the living and supreme pledge whose presence and promise guarantee the safe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in accordance with your Father's will. Rebellion, such as has three times occurred in Nebadon, cannot occur during your absence from Salvington on this bestowal. For the period of the Urantia bestowal the Ancients of Days have decreed that rebellion in Nebadon shall be invested with the automatic seed of its own annihilation.

120:1.7 (1326.4) “As long as you are absent on this final and extraordinary bestowal, I pledge (with Gabriel's co-operation) the faithful administration of your universe; and as I commission you to undertake this ministry of divine revelation and to undergo this experience of perfected human understanding, I act in behalf of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offer you the following counsel, which should guide you in the living of your earth life as you become progressively self-conscious regarding the divine mission of your continued sojourn in the flesh:

2. THE BESTOWAL LIMITATIONS

120:2.1 (1327.1) “1. In accordance with the usages and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que of Sonarington — in compliance with the mandates of the Eternal Son of Paradise — I have provided in every way for your immediate entrance upon this mortal bestowal in harmony with the plans formulated by you and placed in my keeping by Gabriel. You will grow up on Urantia as a child of the realm, complete your human education —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 live your life on Urantia as you have determined, terminate your planetary sojourn, and prepare for ascension to your Father to receive from him the supreme sovereignty of your universe.

120:2.2 (1327.2) “2. Apart from your earth mission and your universe revelation, but incidental to both, I counsel that you assume, after you are sufficiently self-conscious of your divine identity, the additional task of technically terminating the Lucifer rebellion in the system of Satania, and that you do all this as the *Son of Man*; thus, as a mortal creature of the realm, in weakness made powerful by faith-submission to the will of your Father, I suggest that you graciously achieve all you have repeatedly declined arbitrarily to accomplish by power and might when you were so endowed at the time of the inception of this sinful and unjustified rebellion. I would regard it as a fitting climax of your mortal

고 네 우주의 초월적 주권자인 하느님의 아들로써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네 필사자 증여의 절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바돈에 있는 지능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형인 한 필사 사람으로서, 칼리가스티아와 루시퍼를 만나 불경스러운 자만심에 대해 판결하고, 가정되어진 너의 낮은 신분으로, 이 타락한 빛의 자식들이 더 이상 치욕적인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행위를 언제까지나 종결시키도록 하라. 너는 이제까지 창조자의 특권을 사용하여 이러한 반역자를 물리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 왔었지만, 이제는 네가 창조체 중 가장 낮은 존재의 형상으로써, 이러한 타락한 아들들의 손에서 영토를 비틀어 빼앗아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비가 너에게, 너의 독단적인 권한의 힘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던 이러한 관련사들을 이제는 네가 필사자 육신의 역할로서 네가 행함에서 보인 공의를 너의 지역우주 전체가 너무나 공평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바돈에서의 최극자의 주권의 가능성을 너의 증여에 의해 이렇게 수립함으로서, 이 성취에서의 실현에 다소간의 시간적 지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앞서 있었던 내란에서의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모든 관련사들을 사실상 종결짓게 될 것이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너의 우주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을 실질적으로 청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너의 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의 자질-부여와 함께, 너의 위대한 개인적 창조계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너의 권한에 대한 유사한 도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3. 유란시아의 이탈을 네가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네가 너의 우주의 마지막 증여 체험을 하였던 네 우주에게 영원히 인식될 수 있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칭호를 가브리엘로부터 받기를 조언 한다; 그리고 너의 증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칼리가스티아의 배반과 그 뒤를 이은 아담의-불이행으로 인한 유란시아의 슬픔과 혼란을 보상해 주기 위한 모든 일을 추가로 해주기 바란다.

“4.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고 있던 필사자 생존자들이 부활되며, 증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확립됨과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섭리시대적 심판의 공표와 함께 너의 유란시아 증여를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명확한 욕구가 있을 때, 가브리엘과 모든 관계자들은 너의 요청에 따라 너와 협동할 것이다.

“5. 네가 증여될 그 행성, 그리고 네가 육신의 상태로 머무르게 될 그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나는 네가 주로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조언한다. 우선, 필사자 영적 본성의 해방과 통찰력에 관심을 두어라. 다음으로는, 어두움에 처한 필사자 지성에 빛을 비추고, 그들의 혼을 치유하며, 오랫동안 얽매어 온 공포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나서, 너의 필사자의 지혜에 따라 육신 속에 있는 네 형제들의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안녕을 돌보아 주도록 하여라.

bestowal if you should return to us as the Son of Man,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s well as the Son of God, supreme sovereign of your universe. As a mortal man, the lowest type of intelligent creature in Nebadon, meet and adjudicate the blasphemous pretensions of Caligastia and Lucifer and, in your assumed humble estate, forever end the shameful misrepresentations of these fallen children of light. Having steadfastly declined to discredit these rebels through the exercise of your creator prerogatives, now it would be fitting that you should, in the likeness of the lowest creatures of your creation, wrest dominion from the hands of these fallen Sons; and so would your whole local universe in all fairness clearly and forever recognize the justice of your doing in the role of mortal flesh those things which mercy admonished you not to do by the power of arbitrary authority. And having thus by your bestowal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in Nebadon, you will in effect have brought to a close the unadjudicated affairs of all preceding insurrections, notwithstanding the greater or lesser time lag involved in the realization of this achievement. By this act the pending dissensions of your universe will be in substance liquidated. And with the subsequent endowment of supreme sovereignty over your universe, similar challenges to your authority can never recur in any part of your great personal creation.

120:2.3 (1327.3) “3. When you have succeeded in terminating the Urantia secession, as you undoubtedly will, I counsel you to accept from Gabriel the conference of the title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s the eternal recognition by your universe of your final bestowal experience; and that you further do any and all things, consistent with the purport of your bestowal, to atone for the sorrow and confusion brought upon Urantia by the Caligastia betrayal and the subsequent Adamic default.

120:2.4 (1328.1) “4. In accordance with your request, Gabriel and all concerned will co-operate with you in the expressed desire to end your Urantia bestowal with the pronouncement of a dispensational judgment of the realm, accompanied by the termination of an age, the resurrection of the sleeping mortal survivo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ispensation of the bestowed Spirit of Truth.

120:2.5 (1328.2) “5. As concerns the planet of your bestowal and the immediate generation of men living thereon at the time of your mortal sojourn, I counsel you to function largely in the role of a teacher. Give attention, first, to the liberation and inspiration of man’s spiritual nature. Next, illuminate the darkened human intellect, heal the souls of men, and emancipate their minds from age-old fears. And then, in accordance with your mortal wisdom, minister to the physical well-being

너의 모든 우주에게 영감과 교화를 줄 수 있도록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살도록 하여라.

“6. 네가 증여될 행성에서, 반란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해 주어라. 유란시아에서 최극자의 주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그리하여 네가 직접 창조한 광범위한 권역들 전반에도 이러한 주권 확립을 확장시켜라. 이것, 육신의 모습을 한 너의 물질적 증여에 있어서, 너는 인간 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를 따르는 이원(二元)의 체험인, 시간-공간 창조자에 대한 최종적 깨우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너의 일생 속에서 유한한 창조체들의 의지와 무한한 창조자의 의지가 하나가 되며, 그들은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신(神)속에서도 결합될 것이다. 네가 증여될 행성에 진리의 영을 쏟아부어줄 것이며, 그리하여 그 고립된 구체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들로 하여금 우리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분화된 현존, 그 세계에 있는 생각 조절자들의 사명활동에 즉시 그리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7. 네가 증여될 그 세계에서 네가 수행할 모든 것에 있어서, 너는 너의 모든 우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위해 일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명심하라. 네가 유란시아에 이러한 필사 육신화의 일생을 증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의 행정-관리적 권역에 속하는 광대한 은하계에 속하는 이미 형성되었거나 현재 형성도중이거나 앞으로 형성되어질 모든 거주 세계에서 이제까지 살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인간적 그리고 초인간적 지능체에 대한 영적 감화를 위한 그러한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필사 육신을 닮은 너의 지구 일생은, 너의 땅에서 머무는 그 시대에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그리고 유란시아에 또는 다른 세계에 있는 인간 존재들의 어떤 후대 자손을 위한 모범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가오는 시대들의 모든 세대에 두루 모든 네바돈 세계들의 생명체들에게 영감이 되도록 유란시아에서의 너의 육신적인 일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8. 필사 육신화 속에서 실현되고 체험될 너의 가장 큰 사명은, 너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전심으로 자극하는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육신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 창조체들에게 너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계시하려는 너의 결정에 포용되어 있다. 동시에 너는 또한, 모든 네바돈의 초(超)필사 존재들에 대한 우리 아버지를 새롭게 강화하여, 해석할 것이다. 인간적 또는 초(超)인간적 형태의 마음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증강된 해석을 주는 이 사명활동과 똑같이, 너는 또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하느님께 제시하도록 또한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네바돈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육신으로의 짧은 일생동안, 하느님을 아는 인간에 의해 필사자 실존의 짧은 생애동안에 달성될 수 있는 초월 가능성을 내 보이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곡절 많은 그

and material comfort of your brothers in the flesh. Live the ideal religious life for the inspiration and edification of all your universe.

120:2.6 (1328.3) “6. On the planet of your bestowal, set rebellion-segregated man spiritually free. On Urantia, make a further contribution to the sovereignty of the Supreme, thus extending the establishment of this sovereignty throughout the broad domains of your personal creation. In this, your material bestowal in the likeness of the flesh, you are about to experience the final enlightenment of a time-space Creator, the dual experience of working within the nature of man with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In your temporal life the will of the finite creature and the will of the infinite Creator are to become as one, even as they are also uniting in the evolving Deity of the Supreme Being. Pour out upon the planet of your bestowal the Spirit of Truth and thus make all normal mortals on that isolated sphere immediately and fully accessible to the ministry of the segregated presence of our Paradise Father, the Thought Adjusters of the realms.

120:2.7 (1328.4) “7. In all that you may perform on the world of your bestowal, bear constantly in mind that you are living a life for the instruction and edification of all your universe. You are *bestowing* this life of mortal incarnation upon Urantia, but you are to *live* such a life for the spiritual inspiration of every human and superhuman intelligence that has lived, now exists, or may yet live on every inhabited world which has formed, now forms, or may yet form a part of the vast galaxy of your administrative domain. Your earth lif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shall not be so lived as to constitute an *example* for the mortals of Urantia in the days of your earthly sojourn nor for any subsequent generation of human beings on Urantia or on any other world. Rather shall your life in the flesh on Urantia be the *inspiration* for all lives upon all Nebadon worlds throughout all generations in the ages to come.

120:2.8 (1328.5) “8. Your great mission to be realized and experienced in the mortal incarnation is embraced in your decision to live a life wholeheartedly motivated to do the will of your Paradise Father, thus to *reveal God*, your Father, in the flesh and especially to the creatures of the flesh. At the same time you will also *interpret*, with a new enhancement, our Father, to the supermortal beings of all Nebadon. Equally with this ministry of new revelation and augmented interpretation of the Paradise Father to the human and the superhuman type of mind, you will also so function as to make a new revelation of man to God. Exhibit in your one short life in the flesh, as it has never before been seen in all Nebadon, the transcendent possibilities attainable by a God-knowing human during the short career of mortal

의 행성 일생에 대하여, 새롭고도 빛나는 해석을 내바돈 전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초(超)인간적 지능들에게 해 주어라. 필사자의 몸을 입고 유란시아에 내려가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너의 전 우주에 너의 광대한 창조체들의 관련사에서의 최극 투쟁에서 완전해진 기법의 이상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사람을 찾아 발견하심과 사람이 하느님을 구하며 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상호적 만족이 되게 하는 것과 한 번의 짧은 육신 속에서의 일생 동안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9. 나는 네가 사실상 세상에서 보통의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도, 잠재적으로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창조자 아들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경고한다. 이 육신화에 두루, 네가 비록 사람의 아들이로서 살고 활동하게 될지라도, 너의 개인적 신성의 창조적 속성들은 구원자별로부터 유란시아까지 너를 따라갈 것이다. 생각 조절자가 네게 임하게 된 후에는 언제든지 그 육신화 과정을 종결시키는 일이 너의 의지적-힘 안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조절자가 도착하고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개인성 고결한-순수성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조절자가 도착하고 너의 중여 임무의 본성과 취지에 대한 점진적 인식이 이루어진 후에는, 너의 창조자 특권들이 너의 필사자 개인성과 연관하여 여전히 남아 있게 되리라는 사실에서 볼 때 너는 어떠한 초인간적-달성-의지나 달성 또는 힘을 자제하여야만 할 것인데, 왜냐하면 너의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이러한 속성들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의식적이고 온전한 의지로서, 전반적인-개인성 선택으로 종결하려는 외길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는 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초(超)인간적 반향도 너의 지상 임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existence, and make a new and illuminating *interpretation* of man and the vicissitudes of his planetary life to all the superhuman intelligences of all Nebadon, and for all time. You are to go down to Urantia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living as a man in your day and generation, you will so function as to show your entire universe the ideal of perfected technique in the supreme engagement of the affairs of your vast creation: The achievement of God seeking man and finding him and the phenomenon of man seeking God and finding him; and doing all of this to mutual satisfaction and doing it during one short lifetime in the flesh.

120:2.9 (1329.1) “9. I caution you ever to bear in mind that, while in fact you are to become an ordinary human of the realm, in potential you will remain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is incarnation, although you will live and act as a Son of Man, the creative attributes of your personal divinity will follow you from Salvington to Urantia. It will ever be within your power-of-will to terminate the incarnation at any moment subsequent to the arrival of your Thought Adjuster. Prior to the arrival and reception of the Adjuster I will vouch for your personality integrity. But subsequent to the arrival of your Adjuster and concomitant with your progressive recognition of the nature and import of your bestowal mission, you should refrain from the formulation of any superhuman will-to-attainment, achievement, or power in view of the fact that your creator prerogatives will remain associated with your mortal personality because of the inseparability of these attributes from your personal presence. But no superhuman repercussions will attend your earthly career apart from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unless you should, by an act of conscious and deliberate will, make an undivided decision which would terminate in whole-personality choice.

제 3 장. 이어진 조언과 충고

“나의 형제여, 그리고 이제, 네가 유란시아로 떠날 준비함에 따라 너를 떠나면서 그리고 너의 중여의 일반적인 행위성에 대하여 너에게 조언을 마치면서, 나는 가브리엘과 상담에서 도출된, 그리고 너의 필사자 일생의 사소한 위상들에 관한 어떤 조언들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더 부가한다:

“1. 너의 필사자 지상 일생의 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너는 동료 사람들에게 실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역시 관심을 기울여라.

“2.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너의 중여의 그 시대와 세대에 확립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가정 생활의 관습을 네가 발견한 그대로

3. FURTHER COUNSEL AND ADVICE

120:3.1 (1329.2) “And now, my brother, in taking leave of you as you prepare to depart for Urantia and after counseling you regarding the general conduct of your bestowal, allow me to present certain advices that have been arrived at in consultation with Gabriel, and which concern minor phases of your mortal life. We further suggest:

120:3.2 (1329.3) “1. That, in the pursuit of the ideal of your mortal earth life, you also give some attention to the realization and exemplification of some things practical and immediately helpful to your fellow men.

120:3.3 (1329.4) “2. As concerns family relationships, give precedence to the accepted customs of family life as you find them established in the day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네가 그 속에 나타나기로 선택한 민족의 실천 관행에 준하여 너의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살아라.

“3. 사회적 질서에 대한 너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네가 주로 영적 재생산과 지적인 해방을 위한 일에만 주로 너의 노력을 한정시키기 바란다. 네가 있는 동안의 경제 구조나 정치적 공약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라.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각별히 헌신하도록 하여라.

“4.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유란시아의 종족들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적 진화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긍정적 종교 윤리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체계를 네가 떠난 후에 유란시아에 남겨 놓으려는 너의 노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섭리시대적 아들로서 너에게는 그 세계 민족들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적합한 어떤 특권들이 부여되어 있다.

“5. 네가 적당한 것을 찾게 된다면, 유란시아에서 발견되듯이 존재하고 있는 종교와 영적 운동들에 너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려 하겠지만, 조직화된 한 예배종파나 구체화된 종교나 또는 필사 존재들의 분리된 어떤 윤리적 집단화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일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피하도록 노력하라. 너의 일생과 가르침은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인 유산이 되어야 한다.

“6. 유란시아의 종교적 믿음의 계속되는 진부한 체계들 또는 진보가 불가능한 종교적 충성심의 다른 유형들이 조성되는 일에 끝까지 네가 불필요하게 기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덧붙여 충고한다: 네가 지구에 어떤 종류의 저술도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들 위에 어떤 글도 남기지 말 것이다; 또한 너의 연관-동료들이 너의 육신을 모방한 어떤 형상들 또는 다른 비슷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당부하여라. 네가 떠날 때, 땅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그 행성에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

“7. 네가 남성의 정상적인 한 개별존재가 되어, 그 행성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너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너의 증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아들 별에서 내린 육신화 명령들 중 하나가, 파라다이스 기원의 증여 아들은 어떤 행성에도 인간 후손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네게 다짐해 두어야만 하겠다.

“8. 다가오는 너의 증여에 관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주하는 조절자의 안내와, 인간을 인도하는 항상-제시되어 있는 신성한 영의 가르침, 그리고 유전적 자질로 물려받아 확대되는 너의 인간 마음의 이성-판단에 너를 맡기기로 할 것이다. 그러한 창조체와 창조자 속성들의 관계적-연합이 너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그 행성 구체들에서 사람의 완전한 일생을 살 수

and generation of your bestowal. Live your family and community life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es of the people among whom you have elected to appear.

120:3.4 (1329.5) “3. In your relations to the social order we advise that you confine your efforts largely to spiritual regeneration and intellectual emancipation. Avoid all entanglements with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ommitments of your day. More especially devote yourself to living the ideal religious life on Urantia.

120:3.5 (1329.6) “4. Under no circumstances and not even in the least detail, should you interfere with the normal and orderly progressive evolution of the Urantia races. But this prohibition must not be interpreted as limiting your efforts to leave behind you on Urantia an enduring and improved system of *positive religious ethics*. As a dispensational Son you are granted certain privileges pertain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spiritual* and *religious* status of the world peoples.

120:3.6 (1330.1) “5. As you may see fit, you are to identify yourself with existing religious and spiritual movements as they may be found on Urantia but in every possible manner seek to avoid the formal establishment of an organized cult, a crystallized religion, or a segregated ethical grouping of mortal beings. Your life and teachings are to become the common heritage of all religions and all peoples.

120:3.7 (1330.2) “6. To the end that you may not unnecessaril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subsequent stereotyped systems of Urantia religious beliefs or other types of nonprogressive religious loyalties, we advise you still further: Leave no writings behind you on the planet. Refrain from all writing upon permanent materials; enjoin your associates to make no images or other likenesses of yourself in the flesh. See that nothing potentially idolatrous is left on the planet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120:3.8 (1330.3) “7. While you will live the normal and average social life of the planet, being a normal individual of the male sex, you will probably not enter the marriage relation, which relation would be wholly honorable and consistent with your bestowal; but I must remind you that one of the incarnation mandates of Sonarington forbids the leaving of human offspring behind on any planet by a bestowal Son of Paradise origin.

120:3.9 (1330.4) “8. In all other details of your oncoming bestowal we would commit you to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teaching of the ever-present divine spirit of human guidance, and the reason-judgment of your expanding human mind of hereditary endowment. Such an association of creature and Creator attributes will enable you to live for us the perfect life of man on

있게 할 것인데, 이는 어떤 한 세계에서(하물며 유란시아에서) 어느 한 세대에 속한 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완전함이 아니라, 너의 멀리-퍼지는 우주의 더욱 높이 완전해진 그리고 완전해지고 있는 세계들에서 평가되는 데 필요한 전적으로 그리고 최극으로 충만한 일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모든 일들에서 내내 우리들을 지탱하여 주신 너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는 네가 우리를 떠나 너 자신의 개인성의 의식을 양도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형태로 육신화한 너의 신성한 정체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나서 네가 유란시아에서의 증여 체험을 모두 마치는 동안, 그리고 네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으로 상승하게 될 때까지,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자별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네가 창조하고 봉사하며 완벽한 남득을 이룩한 너의 우주에 대해 초월적이고 무제한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서 귀환하는 너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를 대신하여 내가 다스린다. 나는 네가 유란시아로 일곱 번째이자 필사자 증여를 위해 가 있는 동안 모든 네바돈에 대하여 대리 주권으로 그들을 관장할 것이다. 그리고 가브리엘아, 나는 너에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려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힘과 영광으로 내게 곧 돌아올 때까지 그의 안전을 맡긴다. 그리고 가브리엘아, 미가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주권자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 집합된 전체 구원자별 현존에서, 미가엘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가 유란시아로의 증여 생애를 모두 마친 후에, 우주의 최극자이자 개인적 통치자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제 4 장.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들

그러하여 자신들의 창조자-아버지가 이기적인 지배를 추구한다고 참소하고, 비굴한 창조체들의 현혹된 우주에 대한 비이성적인 충성 덕분에 창조자 아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힘을 유지하고 있다고 암시하였던, 미가엘의 어떤 비열한 자녀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는 자아를-잊어버리는 봉사의 일생—항상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생—으로 인하여, 언제까지나 침묵하게 되었으며 혼란되고 환멸을 느끼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 미가엘은 진실로 이원(二元)-기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중 개인성은 아니었다. 그는 사람과 함께 관계적-연합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육신화하는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the planetary spheres, not necessarily perfect as regarded by any one man in any one generation on any one world (much less on Urantia) but wholly and supremely replete as evaluated on the more highly perfected and perfecting worlds of your far-flung universe.

120:3.10 (1330.5) “And now, may your Father and my Father, who has ever sustained us in all past performances, guide and sustain you and be with you from the moment you leave us and achieve the surrender of your consciousness of personality, throughout your gradual return to recognition of your divine identity incarnate in human form, and then on through the whole of your bestowal experience on Urantia until your deliverance from the flesh and your ascension to our Father's right hand of sovereignty. When I shall again see you on Salvington, we shall welcome your return to us as the supreme and unconditional sovereign of this universe of your own making, serving, and completed understanding.

120:3.11 (1330.6) “In your stead I now reign. I assume jurisdiction of all Nebadon as acting sovereign during the interim of your seventh and mortal bestowal on Urantia. And to you, Gabriel, I commit the safekeeping of the Son of Man about-to-be until he shall presently and in power and glory be returned to me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And, Gabriel, I am your sovereign until Michael thus returns.”

120:3.12 (1330.7) Then, immediately, in the presence of all Salvington assembled, Michael removed himself from our midst, and we saw him no more in his accustomed place until his return as the supreme and personal ruler of the universe, subsequent to the completion of his bestowal career on Urantia.

4. THE INCARNATION — MAKING TWO ONE

120:4.1 (1331.1) And so certain unworthy children of Michael, who had accused their Creator-father of selfishly seeking rulership and indulged the insinuation that the Creator Son was arbitrarily and autocratically upheld in power by virtue of the unreasoning loyalty of a deluded universe of subservient creatures, were to be silenced forever and left confounded and disillusioned by the life of self-forgetful service which the Son of God now entered upon as the Son of Man —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120:4.2 (1331.2) But make no mistake; Christ Michael, while truly a dual-origin being, was not a double personality. He was not God in association with man but, rather, God incarnate in man. And he was always just that combined being. The only

병합된 존재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한 납득할 수 없는 관계에서 유일한 진보적 요소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진보적인 자아-의식적 실현과 (인간 마음에 의한) 인지였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진보적으로 하느님이 된 것이 아니다. 땅에서의 예수의 일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항상, 그리고 그 언제나까지라도—하느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치 세 존재들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실체로서 한 분 신(神)인 것처럼 똑 같이, 이 하느님과 이 사람은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이다.

미가엘의 증여의 최종 영적 목적이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기적적인 것들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우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란 거의 없으며,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경탄할만한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아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너희의 세계 안에 그리고 그 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우리의 납득 범주를 넘어서는 우주적 법칙의 작용—으로 여긴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이러한 특별한 체험에 두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는—일상적인 방법 안에서—언제나 신성한 행동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이며 믿을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현시하기를 선택하였다.

progressive factor in such a nonunderstandable relationship was the progressive self-conscious realization and recognition (by the human mind) of this fact of being God and man.

120:4.3 (1331.3) Christ Michael did not progressively become God. God did not, at some vital moment in the earth life of Jesus, become man. Jesus was God *and* man — always and even forevermore. And this God and this man were, and now are, *one*, even as the Paradise Trinity of three beings is in reality *one* Deity.

120:4.4 (1331.4)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supreme spiritual purpose of the Michael bestowal was to enhance the *revelation of God*.

120:4.5 (1331.5) Urantia mortals have varying concepts of the miraculous, but to us who live as citizens of the local universe there are few miracles, and of these by far the most intriguing are the incarnational bestowals of the Paradise Sons. The appearance in and on your world, by apparently natural processes, of a divine Son, we regard as a miracle — the operation of universal laws beyond our understanding. Jesus of Nazareth was a miraculous person.

120:4.6 (1331.6) In and through all this extraordinary experience, God the Father chose to manifest himself as he always does — *in the usual way* — in the normal, natural, and dependable way of divine acting.

제 121 편 미가엘이 증여된 시기

⇨ 120

유란시아 책

12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1 편 미가엘이 증여된 시기

섹션

소개

제 1 장. 그리스도 뒤 1세기의 서양 세계

제 2 장. 유대 민족

제 3 장. 이방인의 형편

제 4 장. 이방인의 철학

제 5 장. 이방의 종교들

제 6 장. 히브리 종교

제 7 장. 유대인과 이방인

제 8 장. 이전에 쓰인 기록들

PAPER 121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SECTIONS

Introduction

1. The Occiden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2. The Jewish People

3. Among the Gentiles

4. Gentile Philosophy

5. The Gentile Religions

6. The Hebrew Religion

7. Jews and Gentiles

8. Previous Written Records

소개

나는 한 때 사도 안드레에게 소속되었던 2차 중도자이며, 유란시아 중도자 연합 형제회의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독 밑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계층을 주관하는 우두머리와 기록을 담당하는 멜기세덱의 공동 후원을 받고 있으며, 지구 창조체들인 나의 계층에게 관찰되었던 그대로, 그리고 나의 일시적인 수호자관계에 있었던 인간 주체에게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일생에서의 활동행위에 대한 서술들을 기록으로 옮기도록 권한을 받았다. 안드레는 주(主)께서 글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피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글로 쓴 서술의 사본을 여러 부 만드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 편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들의 작성이 엄청나게 지연되었다.

INTRODUCTION

121:0.1 (1332:1) AC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a commission of twelve members of the United Brotherhood of Urantia Midwayers, conjointly sponsored by the presiding head of our order and the Melchizedek of record, I am the secondary midwayer of onetime attachment to the Apostle Andrew, and I am authorized to place on record the narrative of the life transactions of Jesus of Nazareth as they were observed by my order of earth creatures, and as they were subsequently partially recorded by the human subject of my temporal guardianship. Knowing how his Master so scrupulously avoided leaving written records behind him, Andrew steadfastly refused to multiply copies of his written narrative. A similar attitude on the part of the other apostles of Jesus greatly delayed the writing of the Gospels.

제 1 장. 그리스도 뒤 1세기의 서양 세계

1. THE OCCIDEN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예수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아담의-이후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역사에서 알려진 적이 없고, 그 이후 어떤 시대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사고와 종교적 삶의 부흥을 체험하고 있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하였을 때, 세계는 창조자 아들의 증여를 위하여, 그 때까지 한번도 만연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획득할 수 없었던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 시절 바로 앞 여러 세기들 동안에,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가 서양과 근동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일부 서양의 본성과 일부 동양의 본성을 모두 지닌, 레반트인의 하나인, 유대인들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동방과 서방 양쪽 모두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활용하기에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최적의 상황들은 지중해 세계에 대한 로마의 관대한 정치적 통치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영향에서의 전체적인 화합은 바울의 활동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던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 언어로 전파하였다.

서양에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어느 때에도 예수의 시대와 같은 문명기는 없었다. 유럽의 문명은 아래의 세 가지 영향들 아래에서 통합되고 서로 조화-협동을 이루었다:

1.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
2.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그리고 어느 정도의 철학.
3. 급속히 퍼져나간 유대인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가르침들의 영향력.

예수가 태어났을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은 하나로 통합된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주요 중심지들을 연결해주는 양호한 상태의 도로들이 건설되었다. 바다에서는 해적들이 소탕되어, 무역과 여행이 크게 활발해지는 시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다. 유럽은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행과 무역의 전성시대를 다시 맛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내부적인 평화와 외견상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 속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수의 상위 등급들은 부유하였으나; 비참하고 가난에 쪼들리는 하위 등급들이 인간성에서의 일반서민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이 없었다; 로마 사회 내에 그들의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확대되는 로마제국과 파르티아 국가들 간의 첫 번째 전쟁은 이 시기 직전에 종결되었으며, 결

121:1.1 (1332.2) Jesus did not come to this world during an age of spiritual decadence; at the time of his birth Urantia was experiencing such a revival of spiritual thinking and religious living as it had not known in all its previous post-Adamic history nor has experienced in any era since. When Michael incarnated on Urantia, the world presented the most favorable condition for the Creator Son's bestowal that had ever previously prevailed or has since obtained. In the centuries just prior to these times Greek culture and the Greek language had spread over Occident and near Orient, and the Jews, being a Levantine race, in nature part Occidental and part Oriental, were eminently fitted to utilize such cultural and linguistic settings for the effective spread of a new religion to both East and West. These most favorable circumstances were further enhanced by the tolerant political rule of the Mediterranean world by the Romans.

121:1.2 (1332.3) This entire combination of world influences is well illustrated by the activities of Paul, who, being in religious culture a Hebrew of the Hebrews, proclaimed the gospel of a Jewish Messiah in the Greek tongue, while he himself was a Roman citizen.

121:1.3 (1332.4) Nothing like the civilization of the times of Jesus has been seen in the Occident before or since those days. European civilization was unified and co-ordinated under an extraordinary threefold influence:

121:1.4 (1332.5) 1. The Roma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121:1.5 (1332.6) 2. The Grecian language and culture — and philosophy to a certain extent.

121:1.6 (1332.7) 3. The rapidly spreading influence of Jewish religious and moral teachings.

121:1.7 (1332.8) When Jesus was born, the entire Mediterranean world was a unified empire. Good road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s history, interconnected many major centers. The seas were cleared of pirates, and a great era of trade and travel was rapidly advancing. Europe did not again enjoy another such period of travel and trade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after Christ.

121:1.8 (1333.1) Notwithstanding the internal peace and superficial prosperity of the Greco-Roman world, a majority of the inhabitants of the empire languished in squalor and poverty. The small upper class was rich; a miserable and impoverished lower class embraced the rank and file of humanity. There was no happy and prosperous middle class in those days; it had just begun to make its appearance in Roman society.

121:1.9 (1333.2) The first struggles between the expanding Roman and Parthian states had been

과적으로 시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번영기에 있었고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서방과 동방에 있는 지역들과 많은 상업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 2 장. 유대 민족

유대인들은 고대의 셈족의 일원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그리고 그 당시까지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인들도 셈족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기 1세기 전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셈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었으며, 그들은 그 당시의 무역활동을 지배하고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우연히 점유하고 있었다.

옛 국가들을 연결하는 많은 큰 간선도로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서로 만나고 교차되는 장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의 여행객이나 카라반들 그리고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동방에서 오는 많은 대상들이 이 지역들 중 어떤 곳을 거쳐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미약한 항구로 통행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선박들이 해로를 통해 화물을 서양의 전체 연해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의 행렬 중 반 이상이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의 작은 성읍을 통과하거나 그 근처를 경유해 지나갔다.

팔레스타인이 유대교 문화의 본향이자 그리스도교의 탄생지이기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으며, 로마와 파르티아 국가들의 전체 지역에서 무역을 하였다.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하였고, 로마는 도로와 통합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 세계 전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200개 이상의 회당과 잘 조직된 종교적 공동체를 갖추고,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늘의 왕국에 대한 새로운 복음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초를 다졌고, 나중에는 이곳으로부터 전 세계의 변두리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각각의 유대인 회당은 이방인 신자들의 분파 집단, “헌신적”이거나 아니면 “하느님을-두려워하는” 자들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초기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일단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분파집단의 이 개종자들이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화려하게 장식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문화와 상업 그리고 경매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concluded in the then recent past, leaving Syria in the hands of the Romans. In the times of Jesus, Palestine and Syria were enjoying a period of prosperity, relative peace, and extensive commercial intercourse with the lands to both the East and the West.

2. THE JEWISH PEOPLE

121:2.1 (1333.3) The Jews were a part of the older Semitic race, which also included the Babylonians, the Phoenicians, and the more recent enemies of Rome, the Carthaginians. During the fore part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Jews were the most influential group of the Semitic peoples, and they happened to occupy a peculiarly strategic geographic position in the world as it was at that time ruled and organized for trade.

121:2.2 (1333.4) Many of the great highways joining the nations of antiquity passed through Palestine, which thus became the meeting place, or crossroads, of three continents. The travel, trade, and armies of Babylonia, Assyria, Egypt, Syria, Greece, Parthia, and Rome successively swept over Palestine. From time immemorial, many caravan routes from the Orient passed through some part of this region to the few good seaports of the eastern end of the Mediterranean, whence ships carried their cargoes to all the maritime Occident. And more than half of this caravan traffic passed through or near the littl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121:2.3 (1333.5) Although Palestine was the home of Jewish religious culture and the birthplace of Christianity, the Jews were abroad in the world, dwelling in many nations and trading in every province of the Roman and Parthian states.

121:2.4 (1333.6) Greece provided a language and a culture, Rome built the roads and unified an empire, but the dispersion of the Jews, with their more than two hundred synagogues and well-organized religious communities scattered hither and yon throughout the Roman world, provided the cultural centers in which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found initial reception, and from which it subsequently spread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121:2.5 (1333.7) Each Jewish synagogue tolerated a fringe of gentile believers, “devout” or “God-fearing” men, and it was among this fringe of proselytes that Paul made the bulk of his early converts to Christianity. Even the temple at Jerusalem possessed its ornate court of the gentiles. There was very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ulture, commerce, and worship of Jerusalem and Antioch. In Antioch Paul’s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성전 경배 집중은, 그들의 유일신 사상이 존속되도록 하는 비결이자 동시에 그들을 양육하여 모든 나라들의 유일한 하느님이요 모든 필사자들의 아버지라는 새롭고도 확대된 개념의 세계로 그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약속의 비결이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예배봉사는, 이방의 국가 군주들과 인종적 박해자들의 계속되는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 문화적 개념은 살아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와 그 직속 후계자들이 당대에 획득한 해방에 대한 영웅적인 공적을 기리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아-관리를 즐기고 있었으며, 더욱 위대한 해방자,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메시아의 즉각적인 출현에 대한 기대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유대인들의 왕국인 팔레스타인이 반(半)독립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팔레스타인대로 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을 잇는 카라반 통로들의 서쪽 기착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로마 정부의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로마는 레반트 지역에서 어떤 세력이 커져서, 장차 이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방해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셀류시드가 관할하는 시리아와 프톨레마이오스가 관할하는 이집트가 서로 배척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완충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을 분리되고 독립된 국가로 키우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작고 힘없는 유대인 집단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북으로는 셀류시드에 배척되고 남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배척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파르티아가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기 전에 이집트를 쇠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셀류시드를 점차 약화시키려 했던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주변의 정치적 조건으로 인하여 온 좋게도 해방과 독립을 누렸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므로 야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우월성의 태도는 결국에 가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해버린 로마의 통치를 도저히 견디어 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시기에 처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상 사명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이면서도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아무함으로써 유대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된 이두미아인 헤롯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헤롯은 히브리 제사 의식들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야릇한 많은 하느님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계속 건축하였다.

헤롯과 로마 통치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게

121:2.6 (1333.8) The centralization of the Jewish temple worship at Jerusalem constituted alike the secret of the survival of their monotheism and the promise of the nurture and sending forth to the world of a new and enlarged concept of that one God of all nations and Father of all mortals. The temple service at Jerusalem represented the survival of a religious cultural concept in the face of the downfall of a succession of gentile national overlords and racial persecutors.

121:2.7 (1334.1) The Jewish people of this time, although under Roman suzerainty, enjoyed a considerable degree of self-government and, remembering the then only recent heroic exploits of deliverance executed by Judas Maccabee and his immediate successors, were vibrant with the expectation of the immediate appearance of a still greater deliverer, the long-expected Messiah.

121:2.8 (1334.2) The secret of the survival of Palestine, the kingdom of the Jews, as a semi-independent state was wrapped up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Roman government, which desired to maintain control of the Palestinian highway of travel between Syria and Egypt as well as the western terminals of the caravan routes betwee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Rome did not wish any power to arise in the Levant which might curb her future expansion in these regions. The policy of intrigue which had for its object the pitting of Seleucid Syria and Ptolemaic Egypt against each other necessitated fostering Palestine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state. Roman policy, the degeneration of Egypt, and the progressive weakening of the Seleucids before the rising power of Parthia, explain why it was that for several generations a small and unpowerful group of Jews was able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against both Seleucidae to the north and Ptolemies to the south. This fortuitous liberty and independence of the political rule of surrounding and more powerful peoples the Jew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y were the “chosen people,” to the direct interposition of Yahweh. Such an attitude of racial superiority made it all the harder for them to endure Roman suzerainty when it finally fell upon their land. But even in that sad hour the Jews refused to learn that their world mission was spiritual, not political.

121:2.9 (1334.3) The Jews were unusually apprehensive and suspicious during the times of Jesus because they were then ruled by an outsider, Herod the Idumean, who had seized the overlordship of Judea by cleverly ingratiating himself with the Roman rulers. And though Herod professed loyalty to the Hebrew ceremonial observances, he proceeded to build temples for many strange gods.

121:2.10 (1334.4) The friendly relations of Herod with the Roman rulers made the world safe for Jewish

되었으며,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먼 지역들은 물론 다른 여러 동맹국들에게까지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또한 헤롯의 지배는 히브리와 그리스의 철학들이 더욱 융화되는 데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헤롯은 케자리아 항구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문명세계의 교차점이 되었다. 그는 기원전 4년에 죽었으며,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사명활동 기간 동안, 그리고 기원후 39년까지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통치하였다.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건축가였다. 그는 세포리에 중요한 무역중심지를 세운 것을 포함하여,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개축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영도자들과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였다. 예수가 태어나실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인의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제 3 장. 이방인의 형편

로마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퍼져있던 평화와 번영은 미가엘이 증여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였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의 공동체 속에는, 다음과 같이 잘 조직된 다섯 개의 사회계급들이 있었다:

1. 귀족 계급. 돈과 힘을 쥐고 있는 상위등급으로 특권을 가진 지배계층.

2. 사업자 집단들. 부유한 상인들과 은행가들, 무역업자들—큰 규모의 수입, 수출업자들—과 그리고 국제적인 상인들.

3. 소수의 중산층 계급. 이 집단은 규모는 매우 작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도덕적인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교회는 이 집단들이 계속하여 다양한 생산과 교역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상인 등급에 속하였다.

4. 자유 무산 계급.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거나 없는 집단.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노예 노동자와 경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상위 등급들은 이들을 경멸하였으며, “자손을 번성시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다.

5. 노예들 로마제국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 많은 자들이 우월한 개별존재였고, 자유 무산 계급으로, 혹은 상인 계급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신분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재빨리 개척하였다. 그

travel and thus opened the way for increased Jewish penetration even of distant portions of the Roman Empire and of foreign treaty nations with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Herod's reign also contributed much toward the further blending of Hebrew and Hellenistic philosophies.

121:2.11 (1334.5) Herod built the harbor of Caesarea, which further aided in making Palestine the crossroads of the civilized world. He died in 4 B.C., and his son Herod Antipas governed Galilee and Perea during Jesus' youth and ministry to A.D. 39. Antipas, like his father, was a great builder. He rebuilt many of the cities of Galilee, including the important trade center of Sepphoris.

121:2.12 (1334.6) The Galileans were not regarded with full favor by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and rabbinical teachers. Galilee was more gentile than Jewish when Jesus was born.

3. AMONG THE GENTILES

121:3.1 (1334.7) Although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the Roman state was not of the highest order, the widespread domestic peace and prosperity was propitious for the bestowal of Michael.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socie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consisted of five well-defined strata:

121:3.2 (1335.1) 1. *The aristocracy.* The upper classes with money and official power, the privileged and ruling groups.

121:3.3 (1335.2) 2. *The business groups.* The merchant princes and the bankers, the traders — the big importers and exporters — the international merchants.

121:3.4 (1335.3) 3. *The small middle class.* Although this group was indeed small, it was very influential and provided the moral backbone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which encouraged these groups to continue in their various crafts and trades. Among the Jews many of the Pharisees belonged to this class of tradesmen.

121:3.5 (1335.4) 4. *The free proletariat.* This group had little or no social standing. Though proud of their freedom, they were placed at great disadvantage because they were forced to compete with slave labor. The upper classes regarded them disdainfully, allowing that they were useless except for “breeding purposes.”

121:3.6 (1335.5) 5. *The slaves.* Half the population of the Roman state were slaves; many were superior individuals and quickly made their way up among the free proletariat and even among the

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평범하거나 열등한 상태에 있었다.

우월한 국민들조차 노예가 된 것은 로마의 군사적 정복으로 인한 하나의 특징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힘은 분별불가적이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주로 하층 등급들과 이러한 노예들로 구성되었다.

우수한 노예들은 종종 임금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수입을 저축하여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해방된 많은 노예들이 국가와 교회 그리고 상업세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변형된 이 노예제도를 쉽게 용납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로마제국 안에는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태어난 그 집단 안에 소속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재능 있고 유능한 개별존재들에게는 낮은 계급에서 로마 사회의 높은 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급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등급을 의식하거나 이러한 등급 구분이 그릇되거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억압받는 계층들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그것의 목적을 위한 경제적인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여자들은 비록 팔레스타인에서의 제한된 지위에 비하여, 로마제국 전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연스러운 애정은 이방인 세계의 그것을 훨씬 초월했다.

제 4 장. 이방인의 철학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 어느 정도 열등하였으나, 보다 고상한 이방인들의 가슴 속에는 선천적인 선함과 잠재적인 인간 애정의 풍부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도덕적인 성격과 영적 성취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다. 이방의 세계는 그 때 네 가지의 중요한 철학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주의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 철학 학파들은 다음과 같다:

1. 쾌락주의 학파. 이 학파는 행복 추구에 전념하였다. 상급의 쾌락주의자들은 감각적 무절제에 빠지지 않았다. 이 신조는 적어도 절망적인 숙명론으로부터 로마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무지몽매한 미신과 효과적으로 싸워나갔다.

2. 금욕주의 학파. 금욕주의는 상위 계급 사람

tradesmen. The majority were either mediocre or very inferior.

121:3.7 (1335.6) Slavery, even of superior peoples, was a feature of Roman military conquest. The power of the master over his slave was unqualified. The early Christian church was largely composed of the lower classes and these slaves.

121:3.8 (1335.7) Superior slaves often received wages and by saving their earnings were able to purchase their freedom. Many such emancipated slaves rose to high positions in state, church, and the business world. And it was just such possibilities that made the early Christian church so tolerant of this modified form of slavery.

121:3.9 (1335.8) There was no widespread social problem in the Roman Empire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major portion of the populace regarded themselves as belonging in that group into which they chanced to be born. There was always the open door through which talented and able individuals could ascend from the lower to the higher strata of Roman society, but the people were generally content with their social rank. They were not class conscious, neither did they look upon these class distinctions as being unjust or wrong. Christianity was in no sense an economic movement having for its purpose the amelioration of the miseries of the depressed classes.

121:3.10 (1335.9) Although woman enjoyed more freedom throughout the Roman Empire than in her restricted position in Palestine, the family devotion and natural affection of the Jews far transcended that of the gentile world.

4. GENTILE PHILOSOPHY

121:4.1 (1335.10) The gentiles were, from a moral standpoint, somewhat inferior to the Jews, but there was present in the hearts of the nobler gentiles abundant soil of natural goodness and potential human affection in which it was possible for the seed of Christianity to sprout and bring forth an abundant harvest of moral character and spiritual achievement. The gentile world was then dominated by four great philosophies, all more or less derived from the earlier Platonism of the Greeks. These schools of philosophy were:

121:4.2 (1335.11) 1. *The Epicurean*. This school of thought was dedicated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better Epicureans were not given to sensual excesses. At least this doctrine helped to deliver the Romans from a more deadly form of fatalism; it taught that men could do something to improve their terrestrial status. It did effectually combat ignorant superstition.

121:4.3 (1336.1) 2. *The Stoic*. Stoicism was the superior philosophy of the better classes. The

들의 우월한 철학이었다. 금욕주의자들은 통제하고 있는 이성-숙명이 모든 본성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신성한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물질적 본성을 갖는 악한 육체 속에 그것이 속박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혼은 자연적인 본성,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해방을 성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덕행은 스스로 보상을 가져오게 한다. 금욕주의는 이전의 어떤 순전한 인간의 철학체계도 초월하지 못하였던 숭고한 도덕성, 이상들로 상승하였다. 금욕주의자들은 “하느님의 자손”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그를 알아내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따라서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금욕주의는 하나의 철학으로 남아 있게 되고; 종교가 되지 못하였다. 그 추종자들은 우주적 마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조율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직시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글을 썼을 때, 그는 금욕주의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었다.

3. 견유(犬儒)학과. 견유학파는 그들의 철학의 자취가 아텐의 디오게네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들의 교리들 대부분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가르침들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견유주의는 초기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종교였다. 견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종교적-철학을 민주적인 체제로 만들었다. 별관에서나 시장에서 그들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신조를 설파하였다. 그들은 단순성과 선행을 가르쳤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방랑하는 견유주의 전도자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대중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적 교리와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준비시켜 주었다. 그들의 대중 설교 계획은 바울 서신들을 주로 본 따고 그것들의 문체와 흡사하였다.

4. 회의주의 학파. 회의주의는 지식이란 그릇된 것이며 신념이나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태도였으며 널리 전파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철학들은 반(半)-종교적인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종종 사람들을 활기 있게 하고 윤리적이고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였으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견유주의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강한 자들과 현명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종교는 아니었다.

제 5 장. 이방의 종교들

이전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종교는 주로 한 부족이나 또는 국가의 문제였으며; 개별존재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방 신들은 부족 또는 국가를 위한 존재였고, 개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한 종교 체계들은 보통 개인의 개별적인 영적 소망에 대한 만족을 조금도 잘 제공하지 못하였다.

예수 시대에 서양의 종교들에는 다음이 포함

Stoics believed that a controlling Reason-Fate dominated all nature. They taught that the soul of man was divine; that it was imprisoned in the evil body of physical nature. Man's soul achieved liberty by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with God; thus virtue came to be its own reward. Stoicism ascended to a sublime morality, ideals never since transcended by any purely human system of philosophy. While the Stoics professed to be the “offspring of God,” they failed to know him and therefore failed to find him. Stoicism remained a philosophy; it never became a religion. Its followers sought to attune their minds to the harmony of the Universal Mind, but they failed to envisage themselves as the children of a loving Father. Paul leaned heavily toward Stoicism when he wrote,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121:4.4 (1336.2) 3. *The Cynic*. Although the Cynics traced their philosophy to Diogenes of Athens, they derived much of their doctrine from the remnants of the teachings of Machiventa Melchizedek. Cynicism had formerly been more of a religion than a philosophy. At least the Cynics made their religio-philosophy democratic. In the fields and in the market places they continually preached their doctrine that “man could save himself if he would.” They preached simplicity and virtue and urged men to meet death fearlessly. These wandering Cynic preachers did much to prepare the spiritually hungry populace for the later Christian missionaries. Their plan of popular preaching was much after the pattern,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Paul's Epistles.

121:4.5 (1336.3) 4. *The Skeptic*. Skepticism asserted that knowledge was fallacious, and that conviction and assurance were impossible. It was a purely negative attitude and never became widespread.

121:4.6 (1336.4) These philosophies were semireligious; they were often invigorating, ethical, and ennobling but were usually above the common people.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Cynicism, they were philosophies for the strong and the wise, not religions of salvation for even the poor and the weak.

5. THE GENTILE RELIGIONS

121:5.1 (1336.5) Throughout preceding ages religion had chiefly been an affair of the tribe or nation; it had not often been a matter of concern to the individual. Gods were tribal or national, not personal. Such religious systems afforded little satisfaction for the individual spiritual longings of the average person.

121:5.2 (1336.6) In the times of Jesus the religions of

된다:

1. 이교도 예배종파. 이것들 속에는 그리스와 라틴의 신화, 애국심, 그리고 전통이 뒤섞여 있었다.

2. 황제숭배. 국가의 상징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신성화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교인들과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매우 분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이 양쪽 교회들에 대하여 혹독한 박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3. 점성술. 바빌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리스-로마제국에 두루 종교로 발전하였다. 심지어 20세기 사람들도 이 미신적인 믿음으로부터 충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4. 신비 예배종파. 그토록 영적으로 굶주린 세계에, 신비 예배종파들, 레반트 지역으로부터 생겨난 새롭고 낮은 종교들의 홍수가 덮쳐 들어왔었고 이들 종교들은 일반 대중들을 홀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개별적 구원을 약속했다. 이들 종교는 급속하게 그리스-로마 세계의 하위 계층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가르침들, 신(神)에 대한 장엄한 개념을 제시하는, 광대하게 우월한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은, 부수적으로는 지식인에게 흥미를 이끄는 신학을, 그리고 무지하였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평범한 사람을 포함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심오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신비 종교들은 민족적 믿음들의 종말을 가져왔고, 수많은 개인적 예배종파들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신비교는 수가 많았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1. 어떤 신화같은 전설, 일종의 신비—그것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비교는 미트라교의 가르침에 의하여 묘사되듯이 어떤 하느님의 일생과 죽음, 그리고 일생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동안 그리스도교의 바울의 떠오르는 예배종파와 동시대에서 함께, 경쟁자로 있었다.

2. 신비교들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다. 그들은 개인적이고 우애적이었고, 종교적 형제신분과 수많은 교파적 사회를 나타나게 만들었다.

3. 그들의 예배봉사는 화려한 입장 의식과 감동적인 성찬이 특징 이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들의 의식과 예식은 때로는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4. 그러나 그들의 예식들의 본질이나 그것들의 지나친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신비교들은 하나같이 그것들의 신봉자들에게 구원, “악으로부터의 해방, 죽음 이후의 생존, 그리고 슬픔과 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행복한 세계에서의 항구적 일생”을 약속했다.

the Occident included:

121:5.3 (1336.7) 1. *The pagan cults.* These were a combination of Hellenic and Latin mythology, patriotism, and tradition.

121:5.4 (1336.8) 2. *Emperor worship.* This deification of man as the symbol of the state was very seriously resented by the Jews and the early Christians and led directly to the bitter persecutions of both churches by the Roman government.

121:5.5 (1337.1) 3. *Astrology.* This pseudo science of Babylon developed into a religion throughout the Greco-Roman Empire. Even in the twentieth century man has not been fully delivered from this superstitious belief.

121:5.6 (1337.2) 4. *The mystery religions.* Upon such a spiritually hungry world a flood of mystery cults had broken, new and strange religions from the Levant, which had enamored the common people and had promised them *individual* salvation. These religions rapidly became the accepted belief of the lower classes of the Greco-Roman world. And they did much to prepare the way for the rapid spread of the vastly superior Christian teachings, which presented a majestic concept of Deity, associated with an intriguing theology for the intelligent and a profound proffer of salvation for all, including the ignorant but spiritually hungry average man of those days.

121:5.7 (1337.3) The mystery religions spelled the end of national beliefs and resulted in the birth of the numerous personal cults. The mysteries were many but were all characterized by:

121:5.8 (1337.4) 1. Some mythical legend, a mystery — whence their name. As a rule this mystery pertained to the story of some god's life and death and return to life, as illustrated by the teachings of Mithraism, which, for a time, were contemporary with, and a competitor of, Paul's rising cult of Christianity.

121:5.9 (1337.5) 2. The mysteries were nonnational and interracial. They were personal and fraternal, giving rise to religious brotherhoods and numerous sectarian societies.

121:5.10 (1337.6) 3. They were, in their services, characterized by elaborate ceremonies of initiation and impressive sacraments of worship. Their secret rites and rituals were sometimes gruesome and revolting.

121:5.11 (1337.7) 4. But no matter what the nature of their ceremonies or the degree of their excesses, these mysteries invariably promised their devotees *salvation*, “deliverance from evil, survival after death, and enduring life in blissful realms beyond this world of sorrow and slavery.”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이러한 신비교의 가르침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비교의 대중적 인기는 생존에 대한 사람의 탐구가 있음을 계시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개인적 종교와 개별적 정의에 대한 실제적 굶주림과 갈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신비교가 이러한 소망을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정말로 바로 뒤이어,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이 세상으로 가져왔던 예수의 출현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널리 퍼져 있는 보다 나은 유형의 신비 종교들을 활용하고자 애쓰면서, 개종이 기대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의 가르침들 중 일부분을 개작(改作)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들(그리스도교)이 바울에 의해 변형되었을지라도, 신비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훨씬 우월하였다:

1. 바울은 도덕적인 대속(代贖)과 윤리적인 구원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생명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상을 선포하였다. 바울은 마법적인 의식과 제의적인 매력들을 거부하였다.

2. 그리스도교는 슬픔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존 본질성의 정의로운 성격 자질에 의하여 이어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는, 인간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을 움켜쥔 하나의 종교를 출현시켰다.

3. 신비교들은 신화에 기반을 두었다.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미가엘이 인류에게 증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도덕성은 종교나 철학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교의 사체가 도덕적 일생도 역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항상 발생하지는 않았다. 유대의 종교와, 그 뒤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에 의해 나중에 발전된 그리스도교는, 한 손은 도덕 위에 다른 한 손은 윤리 위에 놓고 종교인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는, 첫 번째로 전 유럽에 퍼진 종교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미완성 철학체계와 복잡한 예배종파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 혼란 속에 있던 그러한 인류 세대 속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개인적 종교—하나님과 그의 아들관계—에 대한 자신의 복음을 제공하였다.

제 6 장. 히브리 종교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종교적 사상은 그리스의 문화적 가르침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변형되어 있었다. 히브리 사상에 대한 동방 학파와 서방학파의 견해들 사이에서

121:5.12 (1337.8)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the teachings of Jesus with the mysteries. The popularity of the mysteries reveals man's quest for survival, thus portraying a real hunger and thirst for personal religion and individual righteousness. Although the mysteries failed adequately to satisfy this longing, they did prepare the way for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Jesus, who truly brought to this world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thereof.

121:5.13 (1337.9) Paul, in an effort to utilize the widespread adherence to the better types of the mystery religions, made certain adaptations of the teachings of Jesus so as to render them more acceptable to a larger number of prospective converts. But even Paul's compromise of Jesus' teachings (Christianity) was superior to the best in the mysteries in that:

121:5.14 (1337.10) 1. Paul taught a moral redemption, an ethical salvation. Christianity pointed to a new life and proclaimed a new ideal. Paul forsook magic rites and ceremonial enchantments.

121:5.15 (1337.11) 2. Christianity presented a religion which grappled with final solutions of the human problem, for it not only offered salvation from sorrow and even from death, but it also promised deliverance from sin followed by the endowment of a righteous character of eternal survival qualities.

121:5.16 (1338.1) 3. The mysteries were built upon myths. Christianity, as Paul preached it, was founded upon a historic fact: the bestowal of Michael, the Son of God, upon mankind.

121:5.17 (1338.2) Morality among the gentiles was not necessarily related to either philosophy or religion. Outside of Palestine it not always occurred to people that a priest of religion was supposed to lead a moral life. Jewish religion and subsequently the teachings of Jesus and later the evolving Christianity of Paul were the first European religions to lay one hand upon morals and the other upon ethics, insisting that religionists pay some attention to both.

121:5.18 (1338.3) Into such a generation of men, dominated by such incomplete systems of philosophy and perplexed by such complex cults of religion, Jesus was born in Palestine. And to this same generation he subsequently gave his gospel of personal religion — sonship with God.

6. THE HEBREW RELIGION

121:6.1 (1338.4) By the close of the first century before Christ the religious thought of Jerusalem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and somewhat modified by Greek cultural teachings and even by Greek philosophy. In the long contest between the views

오랫동안 대립이 이루어지던 중에, 예루살렘과 그 외의 서양과 레반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방식 유대인 즉 변형된 그리스 관점을 채택하였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세 가지 언어가 통용되었는데: 보통사람들은 사투리가 약간 섞인 아람어를; 사제들과 랍비들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교육받은 계층과 상류층 유대인들은 대개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초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 경전은, 나중에 유대 문화와 신학에서 그리스파가 우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언어로 기록된 그리스도교 교사들의 작품들이 곧 출현하게 되었다. 유대주의의 부흥은 히브리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가 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서방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결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화된 유대인의 믿음은 쾌락주의학과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철학과, 금욕주의자들의 자아-포기 교리로부터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금욕주의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였다는 사실은 마카비서의 제4권에 잘 나타나 있으며: 플라톤의 철학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의 교리 역시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화된 유대인들은 히브리 경전에 대해 이러한 우화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히브리 신학에 접목시키는 일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의 신학을 간단하고 비교적 모순이 없는 종교적 신앙과 실천의 체계로 조화시키고 체계화하여 이 문제들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극도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 있으면서 가르치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에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이 합쳐진 후대의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바울은 이를 좀 더 진보적이고 깨우치는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였다.

필로는 위대한 선생이었다; 모세 이후 서양 세계의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사상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다. 윤리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동시 발생적 체계들 속에서, 보다 훌륭한 요소들을 결합한 일곱 명의 탁월한 인간 선생들을 꼽자면, 세타드, 모세, 조로아스터, 노자, 부처, 필로, 그리고 바울이 해당된다.

필로의 모순점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의 신비철학과 로마의 금욕주의 교리를 형식에 매인 히브리 신학에 병합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는데, 이 점을 인식한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기 이전의 그의 기초 신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제거하였다. 필로는 유대 신학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오고 있던

of the Eastern and Western schools of Hebrew thought,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Occident and the Levant in general adopted the Western Jewish or modified Hellenistic viewpoint.

121:6.2 (1338.5) In the days of Jesus three languages prevailed in Palestine: The common people spoke some dialect of Aramaic; the priests and rabbis spoke Hebrew; the educated classes and the better strata of Jews in general spoke Greek. The early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into Greek at Alexandria was responsible in no small measure for the subsequent predominance of the Greek wing of Jewish culture and theology. And the writings of the Christian teachers were soon to appear in the same language. The renaissance of Judaism dates from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This was a vital influence which later determined the drift of Paul's Christian cult toward the West instead of toward the East.

121:6.3 (1338.6) Though the Hellenized Jewish beliefs were very little influenced by the teachings of the Epicureans, they were very materially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Plato and the self-abnegation doctrines of the Stoics. The great inroad of Stoicism is exemplified by the Fourth Book of the Maccabees; the penetration of both Platonic philosophy and Stoic doctrines is exhibited in the Wisdom of Solomon. The Hellenized Jews brought to the Hebrew scriptures such an allegorical interpretation that they found no difficulty in conforming Hebrew theology with their revered Aristotelian philosophy. But this all led to disastrous confusion until these problems were taken in hand by Philo of Alexandria, who proceeded to harmonize and systemize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into a compact and fairly consistent system of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nd it was this later teaching of combined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that prevailed in Palestine when Jesus lived and taught, and which Paul utilized as the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his more advanced and enlightening cult of Christianity.

121:6.4 (1338.7) Philo was a great teacher; not since Moses had there lived a man who exerted such a profound influence on the ethical and religious thought of the Occidental world. In the matter of the combination of the better elements in contemporaneous systems of ethical and religious teachings, there have been seven outstanding human teachers: Sethard, Moses, Zoroaster, Lao-tse, Buddha, Philo, and Paul.

121:6.5 (1339.1) Many, but not all, of Philo's inconsistencies resulting from an effort to combine Greek mystical philosophy and Roman Stoic doctrines with the legalistic theology of the Hebrews, Paul recognized and wisely eliminated from his pre-Christian basic theology. Philo led the way for Paul more fully to restore the concept of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개념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로 바울을 인도하였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유대인 필로와 산조를 맞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에 관한 교리였는데; 필로는 오직 피를 흘림으로써만 용서를 받는다는 교리로부터 해방을 가르쳤던 것이다. 또한 그는 생각 조절자의 실체와 현존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原罪) 이론, 유전적인 죄와 타고난 악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속죄에 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트라 숭배에서 기원된 것이었으며,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또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원죄와 속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형태들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기록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서방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필로의 가르침들도 동시에 따르고 있던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인들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시대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상한 나쁜 감정이 다시 발생해서, 전에 유대인들의 근거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지독한 박해의 물결이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지게 되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운동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황제가 통치하는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에게 빼앗은 해방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었다.

무역이나 혹은 박해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가슴 중심부에 간직하고 있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신학은, 바빌로니아 선생들이 때때로 개입함으로써 인하여 잊힐 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해석되어지고 실천되어 왔던 그대로 유지되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백 오십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종교 축제들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동방(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과 서방(그리스)의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경배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늘 기대하는 데에 의견이 같았다.

제 7 장.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가 왔을 무렵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운명에 대해 확고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방세계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아 놓고 있었다; 이방인들의 방식은

the Paradise Trinity, which had long been dormant in Jewish theology. In only one matter did Paul fail to keep pace with Philo or to transcend the teachings of this wealthy and educated Jew of Alexandria, and that was the doctrine of the atonement; Philo taught deliverance from the doctrine of forgiveness only by the shedding of blood. He also possibly glimpsed the reality and presence of the Thought Adjusters more clearly than did Paul. But Paul's theory of original sin, the doctrines of hereditary guilt and innate evil and redemption therefrom, was partially Mithraic in origin, having little in common with Hebrew theology, Philo's philosophy, or Jesus' teachings. Some phases of Paul's teachings regarding original sin and the atonement were original with himself.

121:6.6 (1339.2) The Gospel of John, the last of the narratives of Jesus' earth life, was addressed to the Western peoples and presents its story much in the light of the viewpoint of the later Alexandrian Christians, who were also disciples of the teachings of Philo.

121:6.7 (1339.3) At about the time of Christ a strange reversion of feeling toward the Jews occurred in Alexandria, and from this former Jewish stronghold there went forth a virulent wave of persecution, extending even to Rome, from which many thousands were banished. But such a campaign of misrepresentation was short-lived; very soon the imperial government fully restored the curtailed liberties of the Jews throughout the empire.

121:6.8 (1339.4) Throughout the whole wide world, no matter where the Jews found themselves dispersed by commerce or oppression, all with one accord kept their hearts centered on the holy temple at Jerusalem. Jewish theology did survive as it was interpreted and practiced at Jerusalem, notwithstanding that it was several times saved from oblivion by the timely intervention of certain Babylonian teachers.

121:6.9 (1339.5) As many as two and one-half million of these dispersed Jews used to come to Jerusalem for the celebration of their national religious festivals. And no matter what the theologic or philosophic differences of the Eastern (Babylonian) and the Western (Hellenic) Jews, they were all agreed on Jerusalem as the center of their worship and in ever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7. JEWS AND GENTILES

121:7.1 (1339.6) By the times of Jesus the Jews had arrived at a settled concept of their origin, history, and destiny. They had built up a rigid wall of separ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gentile

무엇이든지 심하게 경멸하였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율법을 경배하였으며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에 근거하여 자아-정의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하여 이미 여러 선입견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들 대부분은 그들의 나라와 민족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오는 메시아를 상상하였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유대 신학은 돌이킬 수 없도록 정착되어지고 언제까지나 고정된 상태였다.

관용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간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태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키워온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영적 형제애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야훼를 똑같이 공유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따라서 이렇게 새롭고 생소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무서운 굴레로 씌워 놓았는데, 이러한 굴레는 실제적으로 로마의 정치적 규제보다도 더 엄한 것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복종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들의 요구에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의 모든 권역을 일일이 간섭하고 침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세한 행위성 규칙들은 모든 충실한 유대인들을 지배하였으며, 그들이 신성한 전통을 무시하거나 오랫동안 받아들여 온 사회 행위성의 규율을 감히 경멸하는 그들의 동료들 중 하나를 즉시 제거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제정했다고 믿고 있던 독단들과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선의로 보아줄 수가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까지, 명망 있는 선생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 말로 해석한 내용이 문자화된 율법 그 자체보다 더욱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몇몇 종교 영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복음을 배척하도록 묶어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자유와 영적 해방에 대한 새로운 복음의 메신저들로서의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전통의 족쇄를 부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가슴에 기록된 어진 율법”을 이야기하였고, 에스겔은 “사람의 혼속에 거할 새로운 영”을 말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하느님에게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선행을 강조하고 율법의 노예가 된 유대 종교가 전통적 타성의 침체에 희생자로 전락하였을 때, 종교적

world; they looked upon all gentile ways with utter contempt. They worshiped the letter of the law and indulged a form of self-righteousness based upon the false pride of descent. They had formed preconceived notions regarding the promised Messiah, and most of these expectations envisaged a Messiah who would come as a part of their national and racial history. To the Hebrews of those days Jewish theology was irrevocably settled, forever fixed.

121:7.2 (1339.7)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Jesus regarding tolerance and kindness ran counter to the long-standing attitude of the Jews toward other peoples whom they considered heathen. For generations the Jews had nourished an attitude toward the outside world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accept the Master's teachings about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They were unwilling to share Yahweh on equal terms with the gentiles and were likewise unwilling to accept as the Son of God one who taught such new and strange doctrines.

121:7.3 (1340.1) The scribes, the Pharisees, and the priesthood held the Jews in a terrible bondage of ritualism and legalism, a bondage far more real than that of the Roman political rule. The Jews of Jesus' time were not only held in subjugation to the law but were equally bound by the slavish demands of the traditions, which involved and invaded every domain of personal and social life. These minute regulations of conduct pursued and dominated every loyal Jew, and it is not strange that they promptly rejected one of their number who presumed to ignore their sacred traditions, and who dared to flout their long-honored regulations of social conduct. They could hardly regard with favor the teachings of one who did not hesitate to clash with dogmas which they regarded as having been ordained by Father Abraham himself. Moses had given them their law and they would not compromise.

121:7.4 (1340.2) By the time of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the spoken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recognized teachers, the scribes, had become a higher authority than the written law itself. And all this made it easier for certain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to array the people against the acceptance of a new gospel.

121:7.5 (1340.3) These circumstances rendered it impossible for the Jews to fulfill their divine destiny as messengers of the new gospel of religious freedom and spiritual liberty. They could not break the fetters of tradition. Jeremiah had told of the “law to be written in men's hearts,” Ezekiel had spoken of a “new spirit to live in man's soul,” and the Psalmist had prayed that God would “create a clean heart within and renew a right spirit.” But when the Jewish religion of good works and slavery to law fell victim to the stagnation of

진보의 물질은 서쪽의 유럽인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하나의 진보된 신학, 그리스인들의 철학, 로마인들의 법, 히브리인들의 도덕성, 그리고 예수 가르침에 근거하고 바울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성의 존엄성과 영적 해방에 대한 복음 등을 체현하는 하나의 교육 체계를 세계로 전파하는 일에 다른 민족이 요청 받게 되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예배종파는 그것의 도덕성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흔적을 보여주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하느님—일하는 야훼—의 섭리로 여겼다. 그리스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보다 확실한 개념들을 그 새로운 가르침 속에 전해주었다. 바울의 교리들은 신학과 철학적 면에서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윤리적 면에 있어서, 그는 예수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에게서도 영감을 받았다.

바울의 안디옥 그리스도교 예배종파에서 체현되었듯이, 예수의 복음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과 융합되었다:

1. 유대주의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들의 개념들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 논법.

2. 널리 퍼져 있던 신비교들의 매혹적인 가르침들, 특히 어떤 하느님이 희생됨으로써 이루어진 대속, 속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미트라 숭배의 교리들.

3. 이미 확립된 유대 종교의 완강한 도덕성.

예수 시대에, 지중해의 로마제국과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인접된 지역의 민족들은 모두, 세계 지리와 천체 연구 그리고 신체 상태와 질병 등에 대해 아주 미숙하고 원시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의 새롭고 놀라운 선언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선한 영과 나쁜 영을 소유한다는 관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바위와 나무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 시대는 마법이 성행하던 때였으며,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보통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traditionalistic inertia, the motion of religious evolution passed westward to the European peoples.

^{121:7.6 (1340.4)} And so a different people were called upon to carry an advancing theology to the world, a system of teaching embodying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the law of the Romans, the morality of the Hebrews, and the gospel of personality sanctity and spiritual liberty formulated by Paul and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121:7.7 (1340.5)} Paul's cult of Christianity exhibited its morality as a Jewish birthmark. The Jews viewed history as the providence of God — Yahweh at work. The Greeks brought to the new teaching clearer concepts of the eternal life. Paul's doctrines were influenced in theology and philosophy not only by Jesus' teachings but also by Plato and Philo. In ethics he was inspired not only by Christ but also by the Stoics.

^{121:7.8 (1340.6)} The gospel of Jesus, as it was embodied in Paul's cult of Antioch Christianity, became blended with the following teachings:

^{121:7.9 (1340.7)} 1. The philosophic reasoning of the Greek proselytes to Judaism, including some of their concepts of the eternal life.

^{121:7.10 (1340.8)} 2. The appealing teachings of the prevailing mystery cults, especially the Mithraic doctrines of redemption, atonement, and salvation by the sacrifice made by some god.

^{121:7.11 (1340.9)} 3. The sturdy morality of the established Jewish religion.

^{121:7.12 (1341.1)} The Mediterranean Roman Empire, the Parthian kingdom, and the adjacent peoples of Jesus' time all held crude and primitive ideas regarding the geography of the world, astronomy, health, and disease; and naturally they were amazed by the new and startling pronouncements of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ideas of spirit possession, good and bad, applied not merely to human beings, but every rock and tree was viewed by many as being spirit possessed. This was an enchanted age, and everybody believed in miracles as commonplace occurrences.

제 8 장. 이전에 쓰인 기록들

우리는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기록들이 우리의 임무와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화-협동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분실된 사도 안드레의 기록을 읽어 볼 수 있는 기쁨도 누렸고, 미가엘이 증여되었던 기간 동안 지상에 있었던 다양한 우주적 존재들의 (특히 그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였

8. PREVIOUS WRITTEN RECORDS

^{121:8.1 (1341.2)} As far as possible, consistent with our mandate, we have endeavored to utilize and to some extent co-ordinate the existing records having to do with the life of Jesus on Urantia. Although we have enjoyed access to the lost record of the Apostle Andrew and have benefited from the collaboration of a vast host of celestial beings who were on earth during the times of Michael's bestowal (notably his now Personalized Adjuster), it has been our purpose also to make

다.

이 신약성경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다:

1. 마가복음. 요한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하여 가장 최초로 (안드레의 단편적인 기록을 제외하고는)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주(主)를 한 사람의 섬기는 자,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마가는 자신이 서술한 장면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한 소년으로서 그 현장 주변에 있었지만, 실제 안에서 그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서이다. 그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활동하였다. 마가는 베드로의 부탁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간곡한 청에 의해 이것을 기록하였다. 마가는 주(主)가 땅에서 사신 동안 자신의 가르침들을 글로 남기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다른 수제자(首弟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러한 기록된 이야기가 필요함을 느꼈으며, 마가는 그 일의 준비를 담당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는 베드로가 서기 67년에 죽기 전까지 간단한 기록들을 많이 만들었으며, 베드로가 승인한 전체적인 윤곽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죽은 직후부터 이 기록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복음서는 서기 68년 말경에 완성되었다. 마가는 순전히 자신과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글을 썼다. 그 기록은 그 후에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는데, 수많은 구절들이 삭제되고 후대의 문서들 일부가 끝 부분에 삽입되어 복음서 원형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후반부 부분을 대치하였으며, 최초의 원본에 있었던 그 부분은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실되었다. 안드레의 초고와 마태의 초고와 함께, 마가의 이 기록은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그려내려고 하였던, 후에 기록된 모든 복음서들에게 성문화된 기초 역할을 하였다.

2. 마태복음. 소위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복음서는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씌어진, 주(主)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그가 행한 대부분의 사건이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일관된 노력을 견지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 마태의 제자들 중 하나인 이사도르가 이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들에 대한 마태의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이사도르 자신이 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들의 도움도 받았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었다; 이사도르는 그리스어로 기록하였다. 이 글을 마태의 작품이라고 공연함에 있어서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당시의 관습이었다.

use of the so-called Gospels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121:8.2 (1341.3) These New Testament records had their origi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21:8.3 (1341.4) 1. *The Gospel by Mark.* John Mark wrote the earliest (excepting the notes of Andrew), briefest, and most simple record of Jesus' life. He presented the Master as a minister, as man among men. Although Mark was a lad lingering about many of the scenes which he depicts, his record is in reality the Gospel according to Simon Peter. He was early associated with Peter; later with Paul. Mark wrote this record at the instigation of Peter and on the earnest petition of the church at Rome. Knowing how consistently the Master refused to write out his teachings when on earth and in the flesh, Mark, like the apostles and other leading disciples, was hesitant to put them in writing. But Peter felt the church at Rome required the assistance of such a written narrative, and Mark consented to undertake its preparation. He made many notes before Peter died in A.D. 67, and in accordance with the outline approved by Peter and for the church at Rome, he began his writing soon after Peter's death. The Gospel was completed near the end of A.D. 68. Mark wrote entirely from his own memory and Peter's memory. The record has since been considerably changed, numerous passages having been taken out and some later matter added at the end to replace the latter one fifth of the original Gospel, which was lost from the first manuscript before it was ever copied. This record by Mark, in conjunction with Andrew's and Matthew's notes, was the written basis of all subsequent Gospel narratives which sought to portray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121:8.4 (1341.5) 2. *The Gospel of Matthew.*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Matthew is the record of the Master's life which was written for the edification of Jewish Christians. The author of this record constantly seeks to show in Jesus' life that much which he did was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Matthew's Gospel portrays Jesus as a son of David, picturing him as showing great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rophets.

121:8.5 (1341.6) The Apostle Matthew did not write this Gospel. It was written by Isador, one of his disciples, who had as a help in his work not only Matthew's personal remembrance of these events but also a certain record which the latter had made of the sayings of Jesus directly after the crucifixion. This record by Matthew was written in Aramaic; Isador wrote in Greek. There was no intent to deceive in accrediting the production to Matthew. It was the custom in those days for pupils thus to honor their teachers.

마태의 기원적 기록은 서기 40년,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전도의 전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편집되고 첨가되었다. 그 기록은 사적인 것이었으며, 마지막 사본이 서기 416년 시리아의 수도 원 화재 때 소실되었다.

기원후 70년 티투스 장군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도시를 빠져 나와 펠라로 도피하였다. 서기 71년, 펠라에 거하면서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적 기록들에 의거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마가의 기록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을 갖고 있었다.

3. 누가복음.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이방인이었는데, 그는 주(主)의 일생에 관하여 매우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는 서기 47년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하여 배웠다. 누가는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부터 이 사실들을 수집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많이 기록하여 보관하였다. 그는 주(主)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묘사하였다. 그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많은 단편적 기록들을 복음서로 조직화시키지 않았다. 누가는 아카이아에서 82년에 기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완결하기 직전인 서기 90년에 죽었다.

복음서의 편집을 위한 재료로서, 누가는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 체험과 관련시켜 말하였던 예수의 일생에 대한 자료에 의존했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 의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정보들도 갖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일생 가운데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의 마가복음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도르의 글들과, 그리고 서기 78년 안디옥에서 세테스라는 한 신자(信者)가 쓴 간단한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누가는 또한 사도 안드레의 것으로 여겨지는, 종합적이고 많이 편집된 단편적인 기록들의 사본도 갖고 있었다.

4. 요한복음. 요한의 복음서에는 다른 기록들에서는 볼 수 없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근방에서의 예수의 활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렸으며, 비록 요한이 직접 복음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 복음서가 첫 번째로 쓰인 이후, 요한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편집되었다. 이 기록이 작성되었을 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는 서기 101년에 케사리아에서 온 그리스 유대인인 자기 친구 나단을 설득하여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요한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재료들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이미 쓰인 세 권의 기록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요한 자신이 직접 쓴 기록은 없었다. “요한1서”라고 알려진 서신서는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121:8.6 (1342.1) Matthew's original record was edited and added to in A.D. 40 just before he left Jerusalem to engage in evangelistic preaching. It was a private record, the last copy having been destroyed in the burning of a Syrian monastery in A.D. 416.

121:8.7 (1342.2) Isador escaped from Jerusalem in A.D. 70 after the investment of the city by the armies of Titus, taking with him to Pella a copy of Matthew's notes. In the year 71, while living at Pella, Isador wrot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He also had with him the first four fifths of Mark's narrative.

121:8.8 (1342.3) 3. *The Gospel by Luke*. Luke, the physician of Antioch in Pisidia, was a gentile convert of Paul, and he wrote quite a different story of the Master's life. He began to follow Paul and learn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in A.D. 47. Luke preserves much of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in his record as he gathered up these facts from Paul and others. Luke presents the Master as “the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He did not formulate his many notes into the Gospel until after Paul's death. Luke wrote in the year 82 in Achaia. He planned three books dealing with the history of Christ and Christianity but died in A.D. 90 just before he finished the second of these works, the “Acts of the Apostles.”

121:8.9 (1342.4) As material for the compilation of his Gospel, Luke first depended upon the story of Jesus' life as Paul had related it to him. Luke's Gospel is, therefore, in some ways the Gospel according to Paul. But Luke ha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He not only interviewed scores of eyewitnesses to the numerous episodes of Jesus' life which he records, but he also had with him a copy of Mark's Gospel, that is, the first four fifths, Isador's narrative, and a brief record made in the year A.D. 78 at Antioch by a believer named Cedus. Luke also had a mutilated and much-edited copy of some notes purported to have been made by the Apostle Andrew.

121:8.10 (1342.5) 4. *The Gospel of Joh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relates much of Jesus' work in Judea and around Jerusalem which is not contained in the other records. This is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son of Zebedee, and though John did not write it, he did inspire it. Since its first writing it has several times been edited to make it appear to have been written by John himself. When this record was made, John had the other Gospels, and he saw that much had been omitted; accordingly, in the year A.D. 101 he encouraged his associate, Nathan, a Greek Jew from Caesarea, to begin the writing. John supplied his material from memory and by reference to the three records already in existence. He had no written records of his own. The Epistle known as “First John” was written by

지도에 따라 나단이 기록한 작품의 서언(序言)에 해당하는 편지였다.

이 저자들 모두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던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은 그에 대하여 배운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였으며, 오래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나중에 지지를 받게 된 바울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2,000년 동안 유란시아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감사의 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진술하고 활동을 다시 서술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기록된 모든 자료들과 행성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나는 이 기록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세대들을 깨우치는 것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동기를 두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엄청난 많은 모든 정보들로부터,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보들만을 선택하였다. 나는 가능하다면 순전히 인간 근원으로부터 나의 정보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근원이 없을 경우에만, 초인간적인 기록들에 의지하였다.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관념과 개념들이 인간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되었을 때, 나는 명백하게 그러한 인간의 생각 원형들을 반드시 우선하였다. 주(主)의 일생과 가르침의 실제 의미와 진정한 뜻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잘 맞을 수 있도록 단어 표현을 조절하려고 내가 애를 쓰기는 하였지만, 나의 모든 서술을 가능한 한 실재적인 인간의 개념과 생각 원형들을 고수하여 왔다. 나는 인간 마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모든 다른 인간 마음에도 또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잘 안다. 인간의 기록이나 인간의 표현에서 필요한 개념을 찾아 낼 수 없는 경우에만, 나는 내가 소속된 계층이며 땅의 창조체들인 중도자들의 기억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2차 근원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정보에서의 초(超)행성적 근원에 의존했다.

내가 수집해 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관한 이 서술을 준비하였던 메모들—사도 안드레의 기록으로부터의 기억을 제외하고—은, 예수가 왔던 날부터 이 계시들, 더욱 정확하게 다시 진술된 기록이 쓰인 시기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2,000명 이상의 인간 존재들로부터 수집된 주옥같은 생각들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우월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다. 인간의 기록과 인간 개념이 적절한 생각 원형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시적 허용이 활용되어 왔다. 내가 소속된 계시 위원회는, 내가 순수한 인간들로부터는 필요한 개념적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내가 인간의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정보나 개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John himself as a covering letter for the work which Nathan executed under his direction.

121:8.11 (1342.6) All these writers presented honest pictures of Jesus as they saw, remembered, or had learned of him, and as their concepts of these distant events were affected by their subsequent espousal of Paul's theology of Christianity. And these records, imperfect as they are, have been sufficient to change the course of the history of Urantia for almost two thousand years.

121:8.12 (1343.1) [Acknowledgment: In carrying out my commission to restate the teachings and retell the doings of Jesus of Nazareth, I have drawn freely upon all sources of record and planetary information. My ruling motive has been to prepare a record which will not only be enlightening to the generation of men now living, but which may also be helpful to all future generations. From the vast store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me, I have chosen that which is best suited to the accomplishment of this purpose. As far as possible I have derived my information from purely human sources. Only when such sources failed, have I resorted to those records which are superhuman. When ideas and concepts of Jesus' life and teachings have been acceptably expressed by a human mind, I invariably gave preference to such apparently human thought patterns. Although I have sought to adjust the verbal expression the better to conform to our concept of the real meaning and the true import of the Master's life and teachings, as far as possible, I have adhered to the actual human concept and thought pattern in all my narratives. I well know that those concepts which have had origin in the human mind will prove more acceptable and helpful to all other human minds. When unable to find the necessary concepts in the human records or in human expressions, I have next resorted to the memory resources of my own order of earth creatures, the midwayers. And when that secondary source of information proved inadequate, I have unhesitatingly resorted to the superplanetary sources of information.

121:8.13 (1343.2) The memoranda which I have collected, and from which I have prepared this narrative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 aside from the memory of the record of the Apostle Andrew — embrace thought gems and superior concepts of Jesus' teachings assembled from more than two thousand human beings who have lived on earth from the days of Jesus down to the time of the inditing of these revelations, more correctly restatements. The revelatory permission has been utilized only when the human record and human concepts failed to supply an adequate thought pattern. My revelatory commission forbade me to resort to extrahuman sources of either information or expression until such a time as I could testify that I had failed in my

나는 나의 11명 연관-동료 중도자들의 도움과 기록 담당 멜기세덱의 감독 하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한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효력적인 배열에 대한 나의 개념에 맞도록 이 이야기를 표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여 활용한 그 관념들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효력 있는 표현들 중 일부분은, 이 일이 시작될 때 아직 살아있던 자들에 이르기까지, 개입된 그 세대들 동안에 걸쳐 지구에 살았던 여러 인종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이 직접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을 하는 자의 역할을 하였다. 나는 인간의 개념들과 관념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일생에 대한 가장 효과있는 인물묘사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가장 현저하게 유익하고 또 우주적으로 향상시키는 어법으로 표현된 예수의 비길 데 없는 가르침을, 다시 기록하도록 내게 자격을 갖추어 주었다. 유란시아에 있는 연합 중도자 형제단을 대신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서술한 내용이 한층 더 정교해진,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 활용되어왔던 기록과 개념에서의 모든 근원에, 우리가 빚지고 있음을 가장 감사하면서 깊이 인정한다.]

efforts to find the required conceptual expression in purely human sources.

121:8.14 (1343.3) While I, with the collaboration of my eleven associate fellow midwayer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lchizedek of record, have portrayed this narrative in accordance with my concept of its effective arrangement and in response to my choice of immediate expression,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ideas and even some of the effective expressions which I have thus utilized had their origin in the minds of the men of many races who have lived on earth during the intervening generations, right on down to those who are still alive at the time of this undertaking. In many ways I have served more as a collector and editor than as an original narrator. I have unhesitatingly appropriated those ideas and concepts, preferably human, which would enable me to create the most effective portraiture of Jesus' life, and which would qualify me to restate his matchless teachings in the most strikingly helpful and universally uplifting phraseology. In behalf of the Brotherhood of the United Midwayers of Urantia, I most gratefully acknowledge our indebtedness to all sources of record and concept which have been hereinafter utilized in the further elaboration of our restatement of Jesus' life on earth.]

제 122 편 예수의 탄생과 유아 시절

⇨ 121

유란시아 책

12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2 편 예수의 탄생과 유아 시절

색션

소개

- 제 1 장. 요셉과 마리아
- 제 2 장.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 제 3 장.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알림
- 제 4 장. 요셉의 꿈
- 제 5 장. 예수의 땅에서의 부모
- 제 6 장. 나사렛의 집
- 제 7 장.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 제 8 장. 예수의 탄생
- 제 9 장. 성전에 아기를 내 보임
- 제 10 장. 헤롯의 행동

PAPER 122

BIRTH AND INFANCY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 1. Joseph and Mary
- 2. Gabriel Appears to Elizabeth
- 3.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 4. Joseph's Dream
- 5. Jesus' Earth Parents
- 6. The Home at Nazareth
- 7. The Trip to Bethlehem
- 8. The Birth of Jesus
- 9.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 10. Herod Acts

소개

팔레스타인이 미가엘의 증여 대상지로 선택된 이유와, 유란시아에서의 하느님의 아들의 즉각적인 출현을 위한 직접적인 배경으로서 왜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되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가엘은 격리된 세계들의 지위에 대하여 멜기세덱들이 작성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가브리엘과의 상의를 통하여, 자신의 최종적인 증여를 수행할 곳으로 유란시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가브리엘이 유란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인간 집단들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세계의 영적, 지적(知的), 인종적, 그리고 지리적 양상들 그리고 그것의 민족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는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인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정이 미가엘의 인준을 받음에 따라, 가브리엘은 12인 가족 위원회—보다 높은 우주 개인성들의 계층들 중에서 선택된 자—를 임명하여 유대인 가정의 생활에 대한

INTRODUCTION

^{122:0.1 (1344.1)} IT WILL hardly be possible fully to explain the many reasons which led to the selection of Palestine as the land for Michael's bestowal, and especially as to just why the family of Joseph and Mary should have been chosen as the immediate setting for the appearance of this Son of God on Urantia.

^{122:0.2 (1344.2)} After a study of the special report on the status of segregated worlds prepared by the Melchizedeks, in counsel with Gabriel, Michael finally chose Urantia as the planet whereon to enact his final bestowal. Subsequent to this decision Gabriel made a personal visit to Urantia, and, as a result of his study of human groups and his survey of the spiritual, intellectual, racial, and geographic features of the world and its peoples, he decided that the Hebrews possessed those relative advantages which warranted their selection as the bestowal race. Upon Michael's approval of this decision, Gabriel appointed and dispatched to Urantia the Family Commission of

조사임무를 위임하여 유란시아로 파견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 유란시아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그 위원회의 의견으로 미가엘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육신화를 위한 증여 가정으로 똑같이 좋은 점이 있다는, 세 쌍의 가망성이 있는 연합들을 지명하는 보고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추천된 그 세 쌍 중에서, 가브리엘이 직접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선택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때 그는 증여될 그 아이의 현세 어머니가 되도록 그녀가 선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 주었다.

제 1 장. 요셉과 마리아

예수(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계(母系) 선조들에 의해 때때로 비(非) 유대적 인종 혈통이 그의 족보에 많이 첨가되었다.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유서 깊은 족장 시대를 지나 더 초기의 혈통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인과 낫-사람족을 거쳐, 고대의 청색인으로 이루어진 남부 지방의 종족과, 그 위로 안돈과 폰타까지 이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의 직계조상이 아니었으며, 그의 조상은 아담과도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요셉의 직접적인 선조들은 기능공들—건축가, 목수, 석공, 대장장이—이었다. 요셉 자신은 목수였으며 후에는 하도급 업자로 일하였다. 그의 가족은 품위 있는 평민으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명한 족보에 속해있었는데, 유란시아에서의 종교적 진보와 관련하여 특출하였던 비범한 개별존재들이 때때로 배출되어 줄곧 남의 눈을 끌어 왔다.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유란시아의 인종적 역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많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뛰어난 조상들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의 후손이었다. 비록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매우 정상적인 성품을 소유한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녀의 선조들 중에는 아논, 다말, 룻, 밋세바, 앤시, 클로아, 이브, 엔타와 라타와 같은 저명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어떤 유대 여인도 더 유명한 평민 혈통을 갖거나 더 좋은 시조로 거슬러 올라갈 만한 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조상도, 강하지만 평범한 개별존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문명의 행진과 그리고 종교의 발전적 진화 속에서 다수의 걸출한 개인성들에 의해 때때로 돋보였다. 인종적 면에서 마리아를 유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녀는 문화와 신앙적 면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적 자질에서는 시리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족들에 보다 가까웠으며, 그녀의 인종적 유전성은

Twelve — selected from among the higher orders of universe personalities — which was intrusted with the task of making an investigation of Jewish family life. When this commission ended its labors, Gabriel was present on Urantia and received the report nominating three prospective unions as being,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 equally favorable as bestowal families for Michael's projected incarnation.

122:0.3 (1344.3) From the three couples nominated, Gabriel made the personal choice of Joseph and Mary, subsequently making his personal appearance to Mary, at which time he imparted to her the glad tidings that she had been selected to become the earth mother of the bestowal child.

1. JOSEPH AND MARY

122:1.1 (1344.4) Joseph, the human father of Jesus (Joshua ben Joseph), was a Hebrew of the Hebrews, albeit he carried many non-Jewish racial strains which had been added to his ancestral tree from time to time by the female lines of his progenitors. The ancestry of the father of Jesus went back to the days of Abraham and through this venerable patriarch to the earlier lines of inheritance leading to the Sumerians and Nodites and, through the southern tribes of the ancient blue man, to Andon and Fonta. David and Solomon were not in the direct line of Joseph's ancestry, neither did Joseph's lineage go directly back to Adam. Joseph's immediate ancestors were mechanics — builders, carpenters, masons, and smiths. Joseph himself was a carpenter and later a contractor. His family belonged to a long and illustrious line of the nobility of the common people, accentuated ever and anon by the appearance of unusual individual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connection with the evolution of religion on Urantia.

122:1.2 (1345.1) Mary, the earth mother of Jesus, was a descendant of a long line of unique ancestors embracing many of the most remarkable women in the racial history of Urantia. Although Mary was an average woman of her day and generation, possessing a fairly normal temperament, she reckoned among her ancestors such well-known women as Annon, Tamar, Ruth, Bathsheba, Ansie, Cloa, Eve, Enta, and Ratta. No Jewish woman of that day had a more illustrious lineage of common progenitors or one extending back to more auspicious beginnings. Mary's ancestry, like Joseph's, was characterized by the predominance of strong but average individuals, relieved now and then by numerous outstanding personalities in the march of civilization and the progressive evolution of religion. Racially considered, it is hardly proper to regard Mary as a Jewess. In culture and belief she was a Jew, but in hereditary endowment she

요셉의 그것에 비해 더욱 일반적인 것이었다.

미가엘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증여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모든 부부들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광범위한 인종적 결합과 평균 이상의 우월한 개인적 자질을 가장 이상적 병합을 소유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미가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가브리엘은 바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증여의 부모가 되도록 선택하였던 것이다.

제 2 장.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필생의 과업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실제로 시작되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리아는 유대인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속해 있는, 대가족으로 번영한 지파의 일원이었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한낮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인 기원전 8년 6월말이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현존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과 똑같았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남편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 서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해방자의 도래를 염원하고 있는 이때에, 나 가브리엘은 곧 신성한 교사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네가 곧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할 것임을 알려 주려고 왔다.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전념하게 될 것이며, 장성한 후에는 네 가슴을 기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혼들을 주(主)께로 인도할 것이며 또한 네 민족의 혼을 치료해 주고 모든 인류의 영(靈)을 해방시켜 줄 그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친족인 마리아가, 약속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이 환상은 엘리자벳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 가브리엘이 떠난 후, 그녀는 이 체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고, 장엄한 모습의 그 방문자가 말한 것들을 오랫동안 숙고하면서, 다음 해 2월초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남편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무튼, 엘리자벳은 남편에게조차도 다섯 달 동안이나 비밀로 간직하였다.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가리아는 매우 회의적으로 수 주 동안이나 모든 체험들을 의심했으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아내에 대한 가브리엘의

was more a composite of Syrian, Hittite, Phoenician, Greek, and Egyptian stocks, her racial inheritance being more general than that of Joseph.

122:1.3 (1345.2) Of all couples living in Palestine at about the time of Michael's projected bestowal, Joseph and Mary possessed the most ideal combination of widespread racial connections and superior average of personality endowments. It was the plan of Michael to appear on earth as an average man, that the common people might understand him and receive him; wherefore Gabriel selected just such persons as Joseph and Mary to become the bestowal parents.

2. GABRIEL APPEARS TO ELIZABETH

122:2.1 (1345.3) Jesus' lifework on Urantia was really begun by John the Baptist. Zacharias, John's father, belonged to the Jewish priesthood, while his mother, Elizabeth, was a member of the more prosperous branch of the same large family group to which Mary the mother of Jesus also belonged. Zacharias and Elizabeth, though they had been married many years, were childless.

122:2.2 (1345.4) It was late in the month of June, 8 B.C., about three months after the marriage of Joseph and Mary, that Gabriel appeared to Elizabeth at noontide one day, just as he later made his presence known to Mary. Said Gabriel:

122:2.3 (1345.5) "While your husband, Zacharias, stands before the altar in Jerusalem, and while the assembled people pray for the coming of a deliverer, I, Gabriel, have come to announce that you will shortly bear a son who shall be the forerunner of this divine teacher, and you shall call your son John. He will grow up dedicated to the Lord your God, and when he has come to full years, he will gladden your heart because he will turn many souls to God, and he will also proclaim the coming of the soul-healer of your people and the spirit-liberator of all mankind. Your kinswoman Mary shall be the mother of this child of promise, and I will also appear to her."

122:2.4 (1345.6) This vision greatly frightened Elizabeth. After Gabriel's departure she turned this experience over in her mind, long pondering the sayings of the majestic visitor, but did not speak of the revelation to anyone save her husband until her subsequent visit with Mary in early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122:2.5 (1345.7) For five months, however, Elizabeth withheld her secret even from her husband. Upon her disclosure of the story of Gabriel's visit, Zacharias was very skeptical and for weeks doubted the entire experience, only consenting halfheartedly to believe in Gabriel's visit to his wife

방문을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되었다. 사가리아는 엘리자벳의 임신에 관하여 매우 당황하였으나, 자신의 나이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고결한-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사가리아는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전이 되었을 때에야,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된 결과로, 엘리자벳이 운명적인 한 아들, 메시아가 도래할 길을 준비하는 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기원전 8년 11월 중순경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 일이 있는 다음, 마리아는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유다의 성 언덕에 위치한 엘리자벳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설득하였다. 가브리엘은 어머니가 될 두 여인들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도 출현할 것임을 알렸었다. 자연히, 그들은 서로 만나 각자의 체험들을 비교하고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다. 마리아는 자신의 먼 친족이 되는 그 집에 3주 동안 머물렀다. 가브리엘을 만났던 환상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에 엘리자벳이 더욱 힘을 불어넣었고, 그래서 그녀는 운명의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부름에 더욱 충만하게 전념하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어떤 도움도 없는 아이, 영역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갓난아이로서, 운명의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유다의 도에서 출생하였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대로 아들이 생긴 것이 실현된 기쁨을 크게 향유하였으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전에 지도 받았던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세례명으로 주었다. 사가리아의 조카가 이미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그녀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요한은 자신이 자라게 되면 영적 영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심스럽게 전수 받았다. 그리고 요한의 가슴 발은 그러한 씨앗이 언제 뿌려지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그는 자기 아버지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자주 눈에 띄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의의(意義)에 대해 크게 감동되곤 하였다.

제 3 장.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알림

해가 질 무렵이 된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가브리엘은 돌로 만든 낮은 식탁 옆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며, 그녀가 침착성을 되찾기를 기다린 후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主)시며 너도 앞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왔다. 마리아야, 나는 기쁜 소식을

when he could no longer question that she was expectant with child. Zacharias was very much perplexed regarding the prospective motherhood of Elizabeth, but he did not doubt the integrity of his wife, notwithstanding his own advanced age. It was not until about six weeks before John's birth that Zacharias, as the result of an impressive dream, became fully convinced that Elizabeth was to become the mother of a son of destiny, one who was to prepare the way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122:2.6 (1346.1) Gabriel appeared to Mary about the middle of November, 8 B.C., while she was at work in her Nazareth home. Later on, after Mary knew without doubt that she was to become a mother, she persuaded Joseph to let her journey to the City of Judah, four miles west of Jerusalem, in the hills, to visit Elizabeth. Gabriel had informed each of these mothers-to-be of his appearance to the other. Naturally they were anxious to get together, compare experiences, and talk over the probable futures of their sons. Mary remained with her distant cousin for three weeks. Elizabeth did much to strengthen Mary's faith in the vision of Gabriel, so that she returned home more fully dedicated to the call to mother the child of destiny whom she was so soon to present to the world as a helpless babe, an average and normal infant of the realm.

122:2.7 (1346.2) John was born in the City of Judah, March 25, 7 B.C. Zacharias and Elizabeth rejoiced greatly in the realization that a son had come to them as Gabriel had promised, and when on the eighth day they presented the child for circumcision, they formally christened him John, as they had been directed aforetime. Already had a nephew of Zacharias departed for Nazareth, carrying the message of Elizabeth to Mary proclaiming that a son had been born to her and that his name was to be John.

122:2.8 (1346.3) From his earliest infancy John was judiciously impressed by his parents with the idea that he was to grow up to become a spiritual leader and religious teacher. And the soil of John's heart was ever responsive to the sowing of such suggestive seeds. Even as a child he was found frequently at the temple during the seasons of his father's service, and he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significance of all that he saw.

3.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122:3.1 (1346.4) One evening about sundown, before Joseph had returned home, Gabriel appeared to Mary by the side of a low stone table and, after she had recovered her composure, said: "I come at the bidding of one who is my Master and whom you shall love and nurture. To you, Mary, I bring

전하러 왔는데, 너의 임신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러야 하고, 그는 이 땅에서 또한 사람들 중에서 하늘의 왕국의 막을 열 것이다. 내가 이미 방문했던 네 친족 엘리자벳과 요셉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녀 또한 요한이라 불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네 아들이 막강한 힘과 깊은 신념으로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마리아야,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집이 운명의 아이가 이 세상에서 거주할 곳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지고자들의 힘이 너를 강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온 세상의 주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확실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하여 여러 주 동안 가슴속으로만 은밀하게 숙고하였으며,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깊은 신뢰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요되어 여러 날 동안 잠을 설쳤다. 요셉은 처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의심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실제로 신성한 메신저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의 모습을 보았었다는 사실이 거의 믿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신성한 운명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요셉은 혼돈되는 이 관념들을 받아들이지 수 없었지만, 여러 주 동안의 고심 끝에, 그와 마리아 모두는 기대하던 해방자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분이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개념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메시아의 부모로 선택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결론에 이르자, 마리아는 엘리자벳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던 것이다.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모인 요아킴과 한나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부모를 위시하여 두 오빠들과 두 언니들은, 이 때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는 하였지만, 예수의 이 신성한 임무에 대해 늘 심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장차 위대한 선생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자기 언니 살로메에게 털어놓았다.

가브리엘은 예수가 잉태된 다음 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었고, 그의 방문은 그녀가 약속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전체 체험 중에서도 발생한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제 4 장. 요셉의 꿈

요셉은 자기가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glad tidings when I announce that the conception within you is ordained by heaven, and that in due time you will become the mother of a son; you shall call him Joshua, and he shall inaugurate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among men. Speak not of this matter save to Joseph and to Elizabeth, your kinswoman, to whom I have also appeared, and who shall presently also bear a son, whose name shall be John, and who will prepare the way for the message of deliverance which your son shall proclaim to men with great power and deep conviction. And doubt not my word, Mary, for this home has been chosen as the mortal habitat of the child of destiny. My benediction rests upon you, the power of the Most Highs will strengthen you, and the Lord of all the earth shall overshadow you.”

122:3.2 (1346.5) Mary pondered this visitation secretly in her heart for many weeks until of a certainty she knew she was with child, before she dared to disclose these unusual events to her husband. When Joseph heard all about this, although he had great confidence in Mary, he was much troubled and could not sleep for many nights. At first Joseph had doubts about the Gabriel visitation. Then when he became well-nigh persuaded that Mary had really heard the voice and beheld the form of the divine messenger, he was torn in mind as he pondered how such things could be. How could the offspring of human beings be a child of divine destiny? Never could Joseph reconcile these conflicting ideas until, after several weeks of thought, both he and Mar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y had been chosen to become the parents of the Messiah, though it had hardly been the Jewish concept that the expected deliverer was to be of divine nature. Upon arriving at this momentous conclusion, Mary hastened to depart for a visit with Elizabeth.

122:3.3 (1347.1) Upon her return, Mary went to visit her parents, Joachim and Hannah. Her two brothers and two sisters, as well as her parents, were always very skeptical about the divine mission of Jesus, though, of course, at this time they knew nothing of the Gabriel visitation. But Mary did confide to her sister Salome that she thought her son was destined to become a great teacher.

122:3.4 (1347.2) Gabriel's announcement to Mary was made the day following the conception of Jesus and was the only event of supernatural occurrence connected with her entire experience of carrying and bearing the child of promise.

4. JOSEPH'S DREAM

122:4.1 (1347.3) Joseph did not become reconciled to the idea that Mary was to become the mother of an extraordinary child until after he had

는 관념을 감내할 수 없었다. 그 꿈속에서 밝게 빛나는 천상의 메신저가 그에게 나타나 말한 것들 중에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요셉아, 나는 저 높은 곳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장차 세상의 위대한 빛이 되실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도를 받았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일생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우선 자기 동족에게 나타내시게 되며, 그들은 그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할 것이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는,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세상의 신성한 메신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는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방문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들의 해방자”가 되리라는 암시는 전혀 없었으며, 대망하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전혀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해방자였던 것이다. 그의 임무는 어떤 한 집단이 아닌 모든 인종들과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에 더 가까웠다. 요셉이 로마 정부의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갔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요셉의 6대조 부계(父系) 조상이 고아가 되어, 다윗의 직계 자손인 사독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요셉도 “다윗의 가문”으로 간주되었다.

구약성경에서 소위 메시아 예언서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대부분을 예수에게 적용시킨 것은 예수가 이 지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예언자들은 해방자의 도래(到來)를 선포해 왔으며,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약속들은, 다윗왕의 권좌를 계승할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가 도래할 것이며, 모세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었다. 그 외에도, 히브리 경전 속에 있는 많은 상징적인 구절들이 후대에 이르러서 예수의 일생 사명에 잘못 적용되어졌다.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서 마치 주(主)의 땅에서의 일생에서의 어떤 에피소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예수가 자신과 다윗 왕가의 관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도 한 번 있었다. 심지어는 “한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문장마저도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로 해석되었다. 이것 역시 미가엘의 이 세상 생애 이후에 작성된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에서의 많은 것 중에서 진실이다. 이러한 족보 속에는 주(主)의 조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사실적인 것에 근거를 두지 않은 듯이 보인다. 초기에 예수를 추종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고대의

experienced a very impressive dream. In this dream a brilliant celestial messenger appeared to him and, among other things, said: “Joseph, I appear by command of Him who now reigns on high, and I am directed to instruct you concerning the son whom Mary shall bear, and who shall become a great light in the world. In him will be life, and his life shall become the light of mankind. He shall first come to his own people, but they will hardly receive him; but to as many as shall receive him to them will he reveal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After this experience Joseph never again wholly doubted Mary’s story of Gabriel’s visit and of the promise that the unborn child was to become a divine messenger to the world.

122:4.2 (1347.4) In all these visitations nothing was said about the house of David. Nothing was ever intimated about Jesus’ becoming a “deliverer of the Jews,” not even that he was to be the long-expected Messiah. Jesus was not such a Messiah as the Jews had anticipated, but he was the *world’s deliverer*. His mission was to all races and peoples, not to any one group.

122:4.3 (1347.5) Joseph was not of the line of King David. Mary had more of the Davidic ancestry than Joseph. True, Joseph did go to the City of David, Bethlehem, to be registered for the Roman census, but that was because, six generations previously, Joseph’s paternal ancestor of that generation, being an orphan, was adopted by one Zadoc, who was a direct descendant of David; hence was Joseph also accounted as of the “house of David.”

122:4.4 (1347.6) Most of the so-called Messianic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were made to apply to Jesus long after his life had been lived on earth. For centuries the Hebrew prophets had proclaimed the coming of a deliverer, and these promises had been construed by successive generations as referring to a new Jewish ruler who would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by the reputed miraculous methods of Moses, proceed to establish the Jews in Palestine as a powerful nation, free from all foreign domination. Again, many figurative passages found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were subsequently misapplied to the life mission of Jesus. Many Old Testament sayings were so distorted as to appear to fit some episode of the Master’s earth life. Jesus himself onetime publicly denied any connection with the royal house of David. Even the passage, “a maiden shall bear a son,” was made to read, “a virgin shall bear a son.” This was also true of the many genealogies of both Joseph and Mary which were constructed subsequent to Michael’s career on earth. Many of these lineages contain much of the Master’s ancestry, but on the whole they are not genuine and may not be depended upon as factual. The early followers of Jesus all too often

예언적 기사들 모두가 자기들의 주님이며 주(主)이신 그의 일생 속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다.

제 5 장. 예수의 땅에서의 부모

요셉은 온화한 성품과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자기 민족의 모든 종교적 관례와 실천 관행에 항상 신실하였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생각이 깊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비참한 처지는 요셉을 매우 슬프게 하였다. 젊은 시절의 요셉은 여덟 명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매우 쾌활한 편이었으나, 결혼 초기에 (예수의 어린 시절) 그는 정신적으로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기질적인 현시활동은 그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그가 단순한 목수의 직업에서 번영한 공사 계약자가 됨으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풀린 후에는 매우 호전되어 있었다.

마리아의 기질은 그녀의 남편과는 상당히 상반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늘 명랑하였고, 기가 꺾이는 적이 거의 없었으며, 항상-밝은 기질을 갖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들을 자유롭게 수시로 표현하곤 하였으며, 요셉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전까지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 그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아들의 범상치 않은 생애에 대해 염려와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아직 이 충격에서 거의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이 모든 체험들을 겪으면서 마리아는 이상하고 납득하기 힘든 말아들과 그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착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였다.

예수는 인간본성에 대한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납득과 남다른 부드러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재능과 정의로운 분개에 대한 엄청난 수용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의 감정적 태도 속에는, 아버지처럼 생각이 많고 신앙적이며 가끔씩은 슬픈 듯이 보이는 성격이었지만; 마리아의 낙천적이고도 확고한 기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체적으로,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어른으로서의 중대한 과정을 걸어가는 그의 생애에 마리아의 기질이 더 지배적이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가 부모 두 사람의 특색의 혼합된 면을 보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특색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수는 유대 의식(儀式)들의 용법에 대한 엄한 훈련과 히브리 경전에 대한 보기 드문 식견을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마리아로부터는 종교 생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과 개인적인 영적

succumbed to the temptation to make all the olden prophetic utterances appear to find fulfillment in the life of their Lord and Master.

5. JESUS' EARTH PARENTS

122:5.1 (1348.1) Joseph was a mild-mannered man, extremely conscientious, and in every way faithful to the religious conventions and practices of his people. He talked little but thought much. The sorry plight of the Jewish people caused Joseph much sadness. As a youth, among his eight brothers and sisters, he had been more cheerful, but in the earlier years of married life (during Jesus' childhood) he was subject to periods of mild spiritual discouragement. These temperamental manifestations were greatly improved just before his untimely death and after the economic condition of his family had been enhanced by his advancement from the rank of carpenter to the role of a prosperous contractor.

122:5.2 (1348.2) Mary's temperament was quite opposite to that of her husband. She was usually cheerful, was very rarely downcast, and possessed an ever-sunny disposition. Mary indulged in free and frequent expression of her emotional feelings and was never observed to be sorrowful until after the sudden death of Joseph. And she had hardly recovered from this shock when she had thrust upon her the anxieties and questionings aroused by the extraordinary career of her eldest son, which was so rapidly unfolding before her astonished gaze. But throughout all this unusual experience Mary was composed, courageous, and fairly wise in her relationship with her strange and little-understood first-born son and his surviving brothers and sisters.

122:5.3 (1348.3) Jesus derived much of his unusual gentleness and marvelous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from his father; he inherited his gift as a great teacher and his tremendous capacity for righteous indignation from his mother. In emotional reactions to his adult-life environment, Jesus was at one time like his father, meditative and worshipful, sometimes characterized by apparent sadness; but more often he drove forward in the manner of his mother's optimistic and determined disposition. All in all, Mary's temperament tended to dominate the career of the divine Son as he grew up and swung into the momentous strides of his adult life. In some particulars Jesus was a blending of his parents' traits; in other respects he exhibited the traits of one in contrast with those of the other.

122:5.4 (1348.4) From Joseph Jesus secured his strict training in the usages of the Jewish ceremonies and his unusual acquaintance with the Hebrew scriptures; from Mary he derived a broader viewpoint of religious life and a more

자유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인 개념을 얻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두 집안은 그 당시로서는 교육을 잘 받은 편에 속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요셉은 깊은 사색가였던 반면; 마리아는 계획가, 적응력이 뛰어났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요셉은 검은 눈과 검은머리를 가졌으며, 마리아는 갈색 눈과 금발에 가까운 머리를 갖고 있었다.

요셉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기 만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확고하게 믿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녀의 다른 자식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최종적인 태도는 그 아이가 잉태된 직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항상 유지되었다.

마리아는 옷감 짜는 숙련자이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 기술 중에서 평균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가사 관리자였고 그리고 우월한 가정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모두 훌륭한 선생 역할을 하였으며, 자식들이 그 당시의 지식에 해박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요셉은 젊었을 때 마리아의 부친의 집 증축공사에 고용되었었는데, 점심 식사시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예수의 부모가 되도록 운명되어진 부부로서의 구애가 실제로 시작되었다.

요셉이 21살 되던 해에, 그와 마리아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유대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정상적인 정혼 기간 후에 치러졌다. 그 직후에 그들은 나사렛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하였으며, 그 집은 요셉이 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지은 것이었다. 그 집은 사방에 펼쳐진 시골 풍경이 매우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구릉지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곧 부모가 될 이 두 젊은 부부는, 자신들이 집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에 한 우주의 중대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약속의 아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요셉 쪽의 가족 대부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신자들이 되었지만, 마리아 쪽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를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요셉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하여 영적 개념에 더 치우쳐 있었지만,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단지 현세적인 해방자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리아의 선조들은 그 당시 최근이었던 마카비 추종자들의 운동에 두

liberal concept of personal spiritual freedom.

122:5.5 (1349.1) The families of both Joseph and Mary were well educated for their time. Joseph and Mary were educated far above the average for their day and station in life. He was a thinker; she was a planner, expert in adaptation and practical in immediate execution. Joseph was a black-eyed brunet; Mary, a brown-eyed well-nigh blond type.

122:5.6 (1349.2) Had Joseph lived, he undoubtedly would have become a firm believer in the divine mission of his eldest son. Mary alternated between believing and doubting, being greatly influenced by the position taken by her other children and by her friends and relatives, but always was she steadied in her final attitude by the memory of Gabriel's appearance to her immediately after the child was conceived.

122:5.7 (1349.3) Mary was an expert weaver and more than averagely skilled in most of the household arts of that day; she was a good housekeeper and a superior homemaker. Both Joseph and Mary were good teachers, and they saw to it that their children were well versed in the learning of that day.

122:5.8 (1349.4) When Joseph was a young man, he was employed by Mary's father in the work of building an addition to his house, and it was when Mary brought Joseph a cup of water, during a noontime meal, that the courtship of the pair who were destined to become the parents of Jesus really began.

122:5.9 (1349.5) Joseph and Mary were married, in accordance with Jewish custom, at Mary's home in the environs of Nazareth when Joseph was twenty-one years old. This marriage concluded a normal courtship of almost two years' duration. Shortly thereafter they moved into their new home in Nazareth, which had been built by Joseph with the assistance of two of his brothers. The house was located near the foot of the near-by elevated land which so charmingly overlooke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In this home, especially prepared, these young and expectant parents had thought to welcome the child of promise, little realizing that this momentous event of a universe was to transpire while they would be absent from home in Bethlehem of Judea.

122:5.10 (1349.6) The larger part of Joseph's family became believers in the teachings of Jesus, but very few of Mary's people ever believed in him until after he departed from this world. Joseph leaned more toward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expected Messiah, but Mary and her family, especially her father, held to the idea of the Messiah as a temporal deliverer and political ruler. Mary's ancestors had been prominently identified with the

드러지게 정체성이 확인되어 있었었다.

요셉은 유대교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동방 혹은 바빌로니아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마리아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서방 혹은 그리스적인 견해에 강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제 6 장. 나사렛의 집

예수의 집은 나사렛의 북쪽 지역에 있는 높은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고, 성읍의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가 나중에 수시로 시골길 산책을 즐기거나 근처에 있는 고원지대, 동쪽으로 뻗어 있는 다불산 그리고 비슷한 높이의 나인 언덕을 제외하고는 남부 갈릴리의 모든 언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오르는 것을 훨씬 쉽게 하였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 구릉으로부터 약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언덕의 기슭과 나사렛으로부터 가나 쪽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것 외에도, 예수는 세포리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언덕 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난 좁은 길을 따라 산책하기를 즐겼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방이 하나가 있는 석조 건물이었으며 가족들을 기르는 부속 건물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가구들로는 낮은 식탁, 질그릇과 돌로 된 접시와 냄비들, 베틀, 등잔, 몇 개의 작은 의자들, 그리고 돌바닥에 깔고 자는 돗자리들이 있었다. 축사가 가까이 있는 뒷마당에는 곡식을 가는데 필요한 맷돌과 화덕을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었다. 그 맷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곡식을 집어넣기 위해 두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예수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맷돌을 돌리는 동안 곡식을 집어넣는 일을 자주 도왔다.

해가 바뀌면서 가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 식구들은 더 넓게 만든 돌 식탁 주위에 함께 좁혀앉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이 담긴 접시나 혹은 냄비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각자의 음식을 나누며 즐기곤 하였다. 겨울 동안의 저녁식사 때에는 올리브기름으로 채워진 작고 납작한 진흙 등잔으로 식탁을 밝혔다. 마르다가 태어난 후, 요셉은 집에 큰 방을 하나 덧붙여지었으며, 낮에는 목공소로 쓰고 밤에는 침실로 사용하였다.

제 7 장.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기원전 8년 3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그 달)에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의 모든 거주자들이 인구조사를 받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세

Maccabean activities of the then but recent times.

^{122:5.11 (1349.7)} Joseph held vigorously to the Eastern, or Babylonian, views of the Jewish religion; Mary leaned strongly toward the more liberal and broader Western, or Helleni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prophets.

6. THE HOME AT NAZARETH

^{122:6.1 (1349.8)} The home of Jesus was not far from the high hill in the northerly part of Nazareth, some distance from the village spring, which was in the eastern section of the town. Jesus' family dwelt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this made it all the easier for him subsequently to enjoy frequent strolls in the country and to make trips up to the top of this near-by highland, the highest of all the hills of southern Galilee save the Mount Tabor range to the east and the hill of Nain, which was about the same height. Their home was located a little to the south and east of the southern promontory of this hill and about midway between the base of this elevation and the road leading out of Nazareth toward Cana. Aside from climbing the hill, Jesus' favorite stroll was to follow a narrow trail winding about the base of the hill in a northeasterly direction to a point where it joined the road to Sepphoris.

^{122:6.2 (1350.1)} The home of Joseph and Mary was a one-room stone structure with a flat roof and an adjoining building for housing the animals. The furniture consisted of a low stone table, earthenware and stone dishes and pots, a loom, a lampstand, several small stools, and mats for sleeping on the stone floor. In the back yard, near the animal annex, was the shelter which covered the oven and the mill for grinding grain. It required two persons to operate this type of mill, one to grind and another to feed the grain. As a small boy Jesus often fed grain to this mill while his mother turned the grinder.

^{122:6.3 (1350.2)} In later years, as the family grew in size, they would all squat about the enlarged stone table to enjoy their meals, helping themselves from a common dish, or pot, of food. During the winter, at the evening meal the table would be lighted by a small, flat clay lamp, which was filled with olive oil. After the birth of Martha, Joseph built an addition to this house, a large room, which was used as a carpenter shop during the day and as a sleeping room at night.

7. THE TRIP TO BETHLEHEM

^{122:7.1 (1350.3)} In the month of March, 8 B.C. (the month Joseph and Mary were married), Caesar Augustus decreed that all inhabitants of the

금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민족이 계수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은, 유대의 왕 헤롯의 국내의 심각한 어려운 여건들과 관련하여, 유대인의 나라에 대한 인구조사를 1년간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기원전 8년에 이 인구조사가 로마제국 전역에서 실시되었지만, 유독 헤롯이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왕국만은 예외였는데, 그보다 일 년 후인 기원전 7년에 실시되었다.

등록을 위하여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여행할 필요는 없었지만—요셉에게는 가족 전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모험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마리아는 그와 동행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녀는 요셉이 집을 비운 동안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게다가 베들레헴이 유다의 도시와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친족인 엘리자벳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동행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3일 내지 4일의 여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두 사람의 몫을 만들어서 자기도 여행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출발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의 동행을 수락하였으며, 그들은 새벽녘에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을 떠났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고, 타고 갈 수 있는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 물건들과 함께 짐승 위에 타고, 요셉은 걸으면서 그 짐승을 끌고 갔다. 요셉은 최근에 자기 아버지가 몸을 못 쓰게 되어 부모들도 부양해야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과 살림 가구 등을 유지하기가 크게 부담스러워졌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이른 아침에 초라한 자기 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여행 첫 날, 그들은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요단강가에 야영지를 정하고 밤을 보내면서 과연 아이가 태어날까에 대해 여러 가지의 추측을 하였는데, 요셉은 영적 선생으로서의 개념을 버리지 않았고 마리아는 히브리 국가의 해방자인 유대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고집하였다.

8월 19일의 밝은 이른 아침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사르타바산 기슭에서 점심을 먹었고, 여행을 계속하여 그날 밤에 여리고에 도착하여 그 도시 변두리 도로변에 위치한 여인숙에 묵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로마의 통치에 의한 압제, 헤롯, 인구조사 등록, 그리고 유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한 후, 나사렛에서 이 여행자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0일 아침 일찍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정오가 되기 전에 예루

Roman Empire should be numbered, that a census should be made which could be used for effecting better taxation. The Jews had always been greatly prejudiced against any attempt to “number the people,” and this, in connection with the serious domestic difficulties of Herod, King of Judea, had conspired to cause the postponement of the taking of this census in the Jewish kingdom for one year. Throughout all the Roman Empire this census was registered in the year 8 B.C., except in the Palestinian kingdom of Herod, where it was taken in 7 B.C., one year later.

122:7.2 (1350.4) It was not necessary that Mary should go to Bethlehem for enrollment — Joseph was authorized to register for his family — but Mary, being an adventurous and aggressive person, insisted on accompanying him. She feared being left alone lest the child be born while Joseph was away, and again, Bethlehem being not far from the City of Judah, Mary foresaw a possible pleasurable visit with her kinswoman Elizabeth.

122:7.3 (1350.5) Joseph virtually forbade Mary to accompany him, but it was of no avail; when the food was packed for the trip of three or four days, she prepared double rations and made ready for the journey. But before they actually set forth, Joseph was reconciled to Mary's going along, and they cheerfully departed from Nazareth at the break of day.

122:7.4 (1350.6) Joseph and Mary were poor, and since they had only one beast of burden, Mary, being large with child, rode on the animal with the provisions while Joseph walked, leading the beast. The building and furnishing of a home had been a great drain on Joseph since he had also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his parents, as his father had been recently disabled. And so this Jewish couple went forth from their humble home early on the morning of August 18, 7 B.C., on their journey to Bethlehem.

122:7.5 (1351.1) Their first day of travel carried them around the foothills of Mount Gilboa, where they camped for the night by the river Jordan and engaged in many speculations as to what sort of a son would be born to them, Joseph adhering to the concept of a spiritual teacher and Mary holding to the idea of a Jewish Messiah, a deliverer of the Hebrew nation.

122:7.6 (1351.2) Bright and early the morning of August 19, Joseph and Mary were again on their way. They partook of their noontide meal at the foot of Mount Sartaba, overlooking the Jordan valley, and journeyed on, making Jericho for the night, where they stopped at an inn on the highway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Following the evening meal and after much discussion concerning the oppressiveness of Roman rule, Herod, the census enrollment, and the comparative influence of Jerusalem and Alexandria as centers of Jewish

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목적지인 베들레헴에는 오후에 도착하였다.

여인숙은 손님들로 가득 찼으므로 요셉은 먼 친척들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방들은 이미 만원이었다. 그 여인숙 안마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여인숙 바로 아래쪽에 바위를 깎아내고 카라반들을 위해 지어 놓은 마구간들을, 숙박 객을 위하여 짐승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당나귀를 여인숙 안마당에 매어 놓은 후에, 옷 보따리와 식량을 어깨에 메고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향하여 마리아와 함께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숙소는 전에 곡식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으며, 맞은편에는 마구간과 구유가 놓여 있었다. 천막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이런 안락한 장소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요셉은 바로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었지만, 마리아는 매우 지쳐있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진 그녀는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하였다.

제 8 장. 예수의 탄생

밤새도록 마리아는 몸이 불편해서 그녀와 요셉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해가 뜰 무렵 산통이 심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다른 동료 여자 여행객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리아는 한 아들을 낳았다.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는 마리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져온 옷에 싸여, 가까이 있는 구유에 눕혀졌다.

그 전이나 그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된 아기가 태어났으며; 팔 일째 되는 날에 유대의 실천 관행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예수가 태어나신 다음 날, 요셉은 인구조사에 등록했다. 그는 이틀 전에 여리고에서 함께 이사를 나눈 적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부유한 자기 친구에게 요셉을 데리고 갔으며, 그 친구는 나사렛에서 온 그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날 오후에 그들은 여인숙으로 방을 옮겼고, 요셉의 먼 친족 되는 집에 숙소를 얻기 전까지, 거의 3주간을 그곳에서 지냈다.

예수가 태어나신 지 이틀 후, 마리아는 엘리자벳에게 자기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갈을 보냈으

learning and culture, the Nazareth travelers retired for the night's rest. Early in the morning of August 20 they resumed their journey, reaching Jerusalem before noon, visiting the temple, and going on to their destination, arriving at Bethlehem in midafternoon.

122:7.7 (1351.3) The inn was overcrowded, and Joseph accordingly sought lodgings with distant relatives, but every room in Bethlehem was filled to overflowing. On returning to the courtyard of the inn, he was informed that the caravan stables, hewn out of the side of the rock and situated just below the inn, had been cleared of animals and cleaned up for the reception of lodgers. Leaving the donkey in the courtyard, Joseph shouldered their bags of clothing and provisions and with Mary descended the stone steps to their lodgings below. They found themselves located in what had been a grain storage room to the front of the stalls and mangers. Tent curtains had been hung, and they counted themselves fortunate to have such comfortable quarters.

122:7.8 (1351.4) Joseph had thought to go out at once and enroll, but Mary was weary; she was considerably distressed and besought him to remain by her side, which he did.

8. THE BIRTH OF JESUS

122:8.1 (1351.5) All that night Mary was restless so that neither of them slept much. By the break of day the pangs of childbirth were well in evidence, and at noon, August 21, 7 B.C., with the help and kind ministrations of women fellow travelers, Mary was delivered of a male child. Jesus of Nazareth was born into the world, was wrapped in the clothes which Mary had brought along for such a possible contingency, and laid in a near-by manger.

122:8.2 (1351.6) In just the same manner as all babies before that day and since have come into the world, the promised child was born; and on the eighth day, according to the Jewish practice, he was circumcised and formally named Joshua (Jesus).

122:8.3 (1351.7) The next day after the birth of Jesus, Joseph made his enrollment. Meeting a man they had talked with two nights previously at Jericho, Joseph was taken by him to a well-to-do friend who had a room at the inn, and who said he would gladly exchange quarters with the Nazareth couple. That afternoon they moved up to the inn, where they lived for almost three weeks until they found lodgings in the home of a distant relative of Joseph.

122:8.4 (1351.8) The second day after the birth of Jesus, Mary sent word to Elizabeth that her child

며, 요셉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사가리아와 함께 그들이 당면한 모든 관련사들에 대해 상의하자는 초청을 회답으로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리아와 상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예수가 진실로 유대인의 해방자, 메시아이시며, 자신들의 아들 요한은 조력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도록 운명되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마리아도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자기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게 요셉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일 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으며, 요셉은 그 동안 목수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예수가 탄생한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세라핌 천사들이 지도자들 밑에 함께 모여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영광의 찬미를 불렀지만, 이 찬미의 소리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가리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司祭)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목동들은 물론 다른 어떤 필사 창조체들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이 사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나라에 있는 기이한 종교 선생으로부터 얼마 전에 들었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선생들은 그 “생명의 빛”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려던 여러 주간의 수고가 허사로 끝난 후에, 그들이 막 우르로 돌아가려 할 때, 그들은 사가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수임에 틀림없다는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으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그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전해 주었다. 그들이 방문하였을 때, 아기는 태어난 지 3주 정도 되었다.

이 현자(賢者)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된 것이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서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의(善意)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인 신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구유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 아기를 발견하여 경배를 드렸다는 흥미로운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동양적이거나 근동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종교 영도자이거나 정치적 영웅들의 삶에 관해 아름다운 신화들을 계속하여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식이 구전(口傳)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사실로 와전되기가 매우 쉬웠다.

had come and received word in return inviting Joseph up to Jerusalem to talk over all their affairs with Zacharias. The following week Joseph went to Jerusalem to confer with Zacharias. Both Zacharias and Elizabeth had become possessed with the sincere conviction that Jesus was indeed to become the Jewish deliverer, the Messiah, and that their son John was to be his chief of aides, his right-hand man of destiny. And since Mary held these same ideas, it was not difficult to prevail upon Joseph to remain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so that Jesus might grow up to become the successor of David on the throne of all Israel. Accordingly, they remained in Bethlehem more than a year, Joseph meantime working some at his carpenter's trade.

122:8.5 (1352.1) At the noontide birth of Jesus the seraphim of Urantia, assembled under their directors, did sing anthems of glory over the Bethlehem manger, but these utterances of praise were not heard by human ears. No shepherds nor any other mortal creatures came to pay homage to the babe of Bethlehem until the day of the arrival of certain priests from Ur, who were sent down from Jerusalem by Zacharias.

122:8.6 (1352.2) These priests from Mesopotamia had been told sometime before by a strange religious teacher of their country that he had had a dream in which he was informed that “the light of life” was about to appear on earth as a babe and among the Jews. And thither went these three teachers looking for this “light of life.” After many weeks of futile search in Jerusalem, they were about to return to Ur when Zacharias met them and disclosed his belief that Jesus was the object of their quest and sent them on to Bethlehem, where they found the babe and left their gifts with Mary, his earth mother. The babe was almost three weeks old at the time of their visit.

122:8.7 (1352.3) These wise men saw no star to guide them to Bethlehem. The beautiful legend of the star of Bethlehem originated in this way: Jesus was born August 21 at noon, 7 B.C. On May 29, 7 B.C., there occurred an extraordinary conjunction of Jupiter and Saturn in the constellation of Pisces. And it is a remarkable astronomic fact that similar conjunctions occurred on September 29 and December 5 of the same year. Upon the basis of these extraordinary but wholly natural events the well-meaning zealots of the succeeding generation constructed the appealing legend of the star of Bethlehem and the adoring Magi led thereby to the manger, where they beheld and worshiped the newborn babe. Oriental and near-Oriental minds delight in fairy stories, and they are continually spinning such beautiful myths about the lives of their religious leaders and political heroes. In the absence of printing, when most human knowledge was passed by word of mouth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t was very easy for myths

to become traditions and for traditions eventually to become accepted as facts.

제 9 장. 성전에 아기를 내 보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첫아들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방인 국가들 중에서 관습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그를 희생물로 제공하는 대신에, 권한이 부여된 사제에게 그의 부모가 다섯 세겔을 제공함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기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전에 직접 나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당한 희생물을 제공하게 하여) 정화를 받도록 하는 모세의 율례가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이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그에 대한 속전(贖錢)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마리아의 부정(不淨)함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해당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직접 올라갔다.

성전 안마당에는 비범한 두 인물들, 노래를 부르는 시미온과 여자 시인 안나가 항상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미온은 유대인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인 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서로에게 동무가 되었고, 둘 모두 제사장 사가리아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가 요한과 예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시미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해 왔고 또 사가리아를 신뢰하였으므로, 예수가 바로 유대 민족이 기대해 온 해방자임을 믿게 되었다.

사가리아는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기로 한 날을 알고 있었고,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함으로써, 여러 명의 첫-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예수인지를 가리켜 주기로 시미온과 안나와 사전에 협의하였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안나가 지은 시를 시미온이 노래로 불렀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위시하여 성전 마당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첫-아들의 구원에 대한 찬미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도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하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9.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122:9.1 (1352.4) Moses had taught the Jews that every first-born son belonged to the Lord, and that, in lieu of his sacrifice as was the custom among the heathen nations, such a son might live provided his parents would redeem him by the payment of five shekels to any authorized priest. There was also a Mosaic ordinance which directed that a mother, after the passing of a certain period of time, should present herself (or have someone make the proper sacrifice for her) at the temple for purification. It was customary to perform both of these ceremonie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Joseph and Mary went up to the temple at Jerusalem in person to present Jesus to the priests and effect his redemption and also to make the proper sacrifice to insure Mary's ceremonial purification from the alleged uncleanness of childbirth.

122:9.2 (1353.1) There lingered constantly about the courts of the temple two remarkable characters, Simeon a singer and Anna a poetess. Simeon was a Judean, but Anna was a Galilean. This couple were frequently in each other's company, and both were intimates of the priest Zacharias, who had confided the secret of John and Jesus to them. Both Simeon and Anna longed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ir confidence in Zacharias led them to believe that Jesus was the expected deliverer of the Jewish people.

122:9.3 (1353.2) Zacharias knew the day Joseph and Mary were expected to appear at the temple with Jesus, and he had prearranged with Simeon and Anna to indicate, by the salute of his upraised hand, which one in the procession of first-born children was Jesus.

122:9.4 (1353.3) For this occasion Anna had written a poem which Simeon proceeded to sing, much to the astonishment of Joseph, Mary, and all who were assembled in the temple courts. And this was their hymn of the redemption of the first-born son:

122:9.5 (1353.4)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122:9.6 (1352.5) For he has visited us and wrought redemption for his people;

122:9.7 (1353.6)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all of us

122:9.8 (1353.7)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122:9.9 (1353.8) Even as he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함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정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의 아이여 네가 지고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새벽 여명이 높은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찾아왔으니,

우리 하느님의 자비를 기쁨으로 향유하라.

이로써 어둠 안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안에 앉아 있는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 하시리로다.

주님, 이제는 말씀한 대로 당신의 하인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혼동되고 위압되어—아무 말이 없었다. 마리아는 늙은 여자 시인인 안나의 작별 인사 때문에 매우 불안하였고, 요셉은 예수를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인 것처럼 만들려는 그들의 때 이른 노력이 달갑지 않았다.

122:9.10 (1353.9)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122:9.11 (1353.10) To show mercy to our fathers, and remember his holy covenant —

122:9.12 (1353.11) The oath which he swore to Abraham our father,

122:9.13 (1353.12) To grant us that we, being delivered out of the hand of our enemies,

122:9.14 (1353.13) Should serve him without fear,

122:9.15 (1353.14)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122:9.16 (1353.15) Yes, and you, child of promise, sha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122:9.17 (1353.16) For you shall go before the face of the Lord to establish his kingdom;

122:9.18 (1353.17) To give knowledge of salvation to his people

122:9.19 (1353.18) In the remission of their sins.

122:9.20 (1353.19) Rejoice in the tender mercy of our God because the dayspring from on high has now visited us

122:9.21 (1353.20)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122:9.22 (1353.21) To guide our feet into ways of peace.

122:9.23 (1353.22) And now let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O Lord, according to your word,

122:9.24 (1353.23)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122:9.25 (1353.24) Which you have prepared before the face of all peoples;

122:9.26 (1353.25) A light for even the unveiling of the gentiles

122:9.27 (1353.26)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122:9.28 (1353.27) On the way back to Bethlehem, Joseph and Mary were silent — confused and overawed. Mary was much disturbed by the farewell salutation of Anna, the aged poetess, and Joseph was not in harmony with this premature effort to make Jesus out to be the expected Messiah of the Jewish people.

제 10 장. 헤롯의 행동

그러나 헤롯의 감시자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 만은 않았다. 우르에서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자, 헤롯은 그 갈대아인들을 자기 앞에 출두시켰다. 그는 이 현자들에게 새로운

10. HEROD ACTS

122:10.1 (1353.28) But the watchers for Herod were not inactive. When they reported to him the visit of the priests of Ur to Bethlehem, Herod summoned these Chaldeans to appear before him. He

“유대인의 왕”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지만, 그들은 인구조사에 응하러 남편을 따라 온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대답밖에 해 주지 않았다.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헤롯은, 그의 왕국은 세속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어 보내면서, 헤롯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이 현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의 의심은 더 심해졌다. 그가 이 일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있을 때, 그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최근의 발생사건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예수의 속전(贖錢) 예식에서 시미온이 노래한 가사들 일부의 사본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헤롯은 그 부부가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를 알아 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냈다. 헤롯이 나사렛에서 온 그 가족을 좇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아기는 요셉의 친척들 집으로 숨겨졌다.

요셉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두려웠으며, 따라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방 바닥이 났다. 요셉은 성전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 모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정해 준 정결 제물 예법대로, 어린 비둘기 두 마리만 바쳤을 정도로 가난해 있었다.

1년이 넘는 후까지도 그의 정탐꾼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아직도 아기가 베들레헴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가정에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두 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였다. 헤롯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없애고 싶었다. 그리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하루 동안에 열여섯 명의 남자 아기들이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런 음모와 살인은 헤롯의 궁내에서는 보통으로 일어나는 발생사건들이었으며, 심지어는 그의 직계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었다.

이 아기들의 집단적 살해는 예수가 겨우 한 살을 조금 넘었던 기원전 6년 10월 중순에 일어났다. 그러나 헤롯의 측근자들 중에도 도래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의 하나가 베들레헴에서의 아기 살해 계획을 사가리아에게 알려 주었으며, 그는 바로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살해 사건이 있던 전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떠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도 동행시키지 않고 예수만을 데리고 이집트로 여행하였다. 사가리아가 마련해 준 돈으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갔으며, 마리아와 예수가 요셉의 한 부유한 친척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요셉은 직접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꼬박 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물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않았다.

inquired diligently of these wise men about the new “king of the Jews,” but they gave him little satisfaction, explaining that the babe had been born of a woman who had come down to Bethlehem with her husband for the census enrollment. Herod, not being satisfied with this answer, sent them forth with a purse and directed that they should find the child so that he too might come and worship him, since they had declared that his kingdom was to be spiritual, not temporal. But when the wise men did not return, Herod grew suspicious. As he turned these things over in his mind, his informers returned and made full report of the recent occurrences in the temple, bringing him a copy of parts of the Simeon song which had been sung at the redemption ceremonies of Jesus. But they had failed to follow Joseph and Mary, and Herod was very angry with them when they could not tell him whither the pair had taken the babe. He then dispatched searchers to locate Joseph and Mary. Knowing Herod pursued the Nazareth family, Zacharias and Elizabeth remained away from Bethlehem. The boy baby was secreted with Joseph’s relatives.

122:10.2 (1354.1) Joseph was afraid to seek work, and their small savings were rapidly disappearing. Even at the time of the purification ceremonies at the temple, Joseph deemed himself sufficiently poor to warrant his offering for Mary two young pigeons as Moses had directed for the purification of mothers among the poor.

122:10.3 (1354.2) When, after more than a year of searching, Herod’s spies had not located Jesus, and because of the suspicion that the babe was still concealed in Bethlehem, he prepared an order directing that a systematic search be made of every house in Bethlehem, and that all boy babies under two years of age should be killed. In this manner Herod hoped to make sure that this child who was to become “king of the Jews” would be destroyed. And thus perished in one day sixteen boy babies in Bethlehem of Judea. But intrigue and murder, even in his own immediate family, were common occurrences at the court of Herod.

122:10.4 (1354.3) The massacre of these infants took place about the middle of October, 6 B.C., when Jesus was a little over one year of age. But there were believers in the coming Messiah even among Herod’s court attachés, and one of these, learning of the order to slaughter the Bethlehem boy babies, communicated with Zacharias, who in turn dispatched a messenger to Joseph; and the night before the massacre Joseph and Mary departed from Bethlehem with the babe for Alexandria in Egypt. In order to avoid attracting attention, they journeyed alone to Egypt with Jesus. They went to Alexandria on funds provided by Zacharias, and there Joseph worked at his trade while Mary and Jesus lodged with well-to-do relatives of Joseph’s family. They sojourned in Alexandria two full years,

not returning to Bethlehem until after the death of Herod.

제 123 편 예수의 유년기 초기

⇨ 122

유랜시아 책

12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3 편 예수의 유년기 초기

섹션

소개

제 1 장. 나사렛으로 돌아옴

제 2 장. 5살 되던 해(기원전 2년)

제 3 장. 6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들 (기
원전 1년)

제 4 장. 7살 되던 해(서기 1년)

제 5 장. 나사렛에서의 학교 시절

제 6 장. 8살 되던 해(기원후 2년)

PAPER 123

THE EARLY CHILDHOOD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Back in Nazareth

2. The Fifth Year (2 B.C.)

3. Events of the Sixth Year (1 B.C.)

4. The Seventh Year (A.D. 1)

5. School Days in Nazareth

6. His Eighth Year (A.D. 2)

소개

베들레헴에 체류하는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정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까지 아기에게서 젖을 떼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친족들과 함께 살았으며, 요셉은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잘 부양할 수 있었다. 요셉은 몇 달 동안 목수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당시 공공 건물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많은 인부들의 십장(什長)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체험은 후에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주계약자이자 건축자가 되는 관념을 가지게 하였다.

예수의 무력한 유년기의 초기 몇 년 동안 내, 마리아는 앞으로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의 사명을 방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일이 아기에게 생기지나 않을까 하여 노심초사하였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아이에게 그보다 더 헌신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우연히 살게 되었던 그 집에는 마침 그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둘이 있었으며, 동네에도 같이 놀만한 비슷한 또래들이 여섯 명 있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를 늘 자기 가까이에 있게 하였다. 그녀는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도록 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지만, 요셉은, 친족들의

INTRODUCTION

123:0.1 (1355.1) OWING to the uncertainties and anxieties of their sojourn in Bethlehem, Mary did not wean the babe until they had arrived safely in Alexandria, where the family was able to settle down to a normal life. They lived with kinsfolk, and Joseph was well able to support his family as he secured work shortly after their arrival. He was employed as a carpenter for several months and then elevated to the position of foreman of a large group of workmen employed on one of the public buildings then in process of construction. This new experience gave him the idea of becoming a contractor and builder after their return to Nazareth.

123:0.2 (1355.2) All through these early years of Jesus' helpless infancy, Mary maintained one long and constant vigil lest anything befall her child which might jeopardize his welfare or in any way interfere with his future mission on earth; no mother was ever more devoted to her child. In the home where Jesus chanced to be there were two other children about his age, and among the near neighbors there were six others whose ages were sufficiently near his own to make them acceptable play-fellows. At first Mary was disposed to keep Jesus close by her side. She feared something might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적응하여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식의 과잉보호가 어쩌면 아이를 자아-의식적이고 자아-중심적 성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약속의 아이를 그 또래의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게 허락하자는 계획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순종 하였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집 주변과 마당에서 노는 동안에 항상 지켜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오직 애정이 깊은 어머니만이, 갓난아기 때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자기 아들의 안전 때문에 항상 가슴을 졸였던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던 2년 동안, 예수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났다. 몇몇 친구들과 친척들을 빼놓고는, 누구에게도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셉의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뱀피스에 있는 이크나톤의 먼 후예들인 몇몇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누설했으며, 나사렛 가족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집단의 신자들과 함께 요셉의 친척-후원자의 호화로운 집에 모여 나사렛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아이에게 경배하였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히브리 경전의 그리스어 번역판 전(全)권을 예수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뱀피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의 청을 그와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거부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의 신성한 문서들의 이 사본은 요셉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이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름난 장소에 있는 것보다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것이 이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설득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얼마 동안 떠나지 못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친구 에즈레온 소유의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요파로 향하였으며, 기원전 4년 8월 하순에 그 항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자기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의 상의를 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여야만 한다는 관념을 전부터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들의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는 실제로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조상 중 한사람이 다윗 후손의 가문에 입양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다윗 왕위를 이을 새 계

happen to him if he were allowed to play in the garden with the other children, but Joseph, with the assistance of his kinsfolk, was able to convince her that such a course would deprive Jesus of the helpful experience of learning how to adjust himself to children of his own age. And Mary, realizing that such a program of undue sheltering and unusual protection might tend to make him self-conscious and somewhat self-centered, finally gave assent to the plan of permitting the child of promise to grow up just like any other child; and though she was obedient to this decision, she made it her business always to be on watch while the little folks were at play about the house or in the garden. Only an affectionate mother can know the burden that Mary carried in her heart for the safety of her son during these years of his infancy and early childhood.

123:0.3 (1355.3) Throughout the two years of their sojourn at Alexandria, Jesus enjoyed good health and continued to grow normally. Aside from a few friends and relatives no one was told about Jesus' being a "child of promise." One of Joseph's relatives revealed this to a few friends in Memphis, descendants of the distant Ikhnaton, and they, with a small group of Alexandrian believers, assembled at the palatial home of Joseph's relative-benefactor a short time before the return to Palestine to wish the Nazareth family well and to pay their respects to the child. On this occasion the assembled friends presented Jesus with a complete copy of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But this copy of the Jewish sacred writings was not placed in Joseph's hands until both he and Mary had finally declined the invitation of their Memphis and Alexandrian friends to remain in Egypt. These believers insisted that the child of destiny would be able to exert a far greater world influence as a resident of Alexandria than of any designated place in Palestine. These persuasions delayed their departure for Palestine for some time after they received the news of Herod's death.

123:0.4 (1356.1) Joseph and Mary finally took leave of Alexandria on a boat belonging to their friend Ezraeon, bound for Joppa, arriving at that port late in August of the year 4 B.C. They went directly to Bethlehem, where they spent the entire month of September in counsel with their friends and relatives concerning whether they should remain there or return to Nazareth.

123:0.5 (1356.2) Mary had never fully given up the idea that Jesus ought to grow up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Joseph did not really believe that their son was to become a kingly deliverer of Israel. Besides, he knew that he himself was not really a descendant of David; that his being reckoned among the offspring of David was due to the adoption of one of his ancestors into the Davidic line of descent. Mary, of course, thought the City of

승자가 양육되기에는 다윗의 도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지만, 요셉은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켈라우스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에 운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 지방 어느 다른 도시에서도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라우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통치 방법을 더 추구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 외에도, 요셉은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는 곳으로는 갈릴리가 더욱 좋은 장소라고 주장하였지만, 반대하는 마리아를 설득하기까지는 3주가 걸렸다.

10월 1일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을 확신시켰다. 따라서 기원전 4년 10월 초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리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거쳐 나사렛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떠났으며, 마리아와 아이는 짐을 나르는 새로 구입한 짐승을 타고, 요셉과 다섯 명의 친지들은 걸어서 갔으며; 요셉의 친척들은 그들이 나사렛으로 홀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르단 계곡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서쪽으로 가는 길들도 두 명만의 여행자와 어린 나이의 아이가 홀로 여행하기에는 전혀 안전한 곳이 못되었다.

제 1 장. 나사렛으로 돌아옴

여행한지 4일째 되는 날, 일행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하였다. 그들은 나사렛의 집에도 알리지 않은 채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요셉의 결혼한 형제 중 한사람이 3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 매우 놀랐으며; 그들이 일을 매우 은밀히 추진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 마리아의 가족들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날로 요셉의 동생은 이사를 나갔고, 예수의 출생 이후 처음으로 마리아는 그녀의 단출한 가족끼리 자기 집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일주일의 체 못 되어 요셉은 목수로서의 일감을 확보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행복하였다.

나사렛으로 돌아올 당시 예수는 3년 2개월쯤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여행 동안 매우 잘 견디었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고,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자기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데 대한 흥분으로 아이답게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알렉산드리아 놀이친구와의 관계적-연합을 매우 그리워하였다.

나사렛으로 오는 동안 요셉은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갈릴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마리아를 설득하였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 약속을 매우 잘 지켰다.

David the most appropriate place in which the new candidate for David's throne could be reared, but Joseph preferred to take chances with Herod Antipas rather than with his brother Archelaus. He entertained great fears for the child's safety in Bethlehem or in any other city in Judea, and surmised that Archelaus would be more likely to pursue the menacing policies of his father, Herod, than would Antipas in Galilee. And besides all these reasons, Joseph was outspoken in his preference for Galilee as a better place in which to rear and educate the child, but it required three weeks to overcome Mary's objections.

^{123:0.6 (1356.3)} By the first of October Joseph had convinced Mary and all their friends that it was best for them to return to Nazareth. Accordingly, early in October, 4 B.C., they departed from Bethlehem for Nazareth, going by way of Lydda and Scythopolis. They started out early one Sunday morning, Mary and the child riding on their newly acquired beast of burden, while Joseph and five accompanying kinsmen proceeded on foot; Joseph's relatives refused to permit them to make the trip to Nazareth alone. They feared to go to Galilee by Jerusalem and the Jordan valley, and the western routes were not altogether safe for two lone travelers with a child of tender years.

1. BACK IN NAZARETH

^{123:1.1 (1356.4)} On the fourth day of the journey the party reached its destination in safety. They arrived unannounced at the Nazareth home, which had been occupied for more than three years by one of Joseph's married brothers, who was indeed surprised to see them; so quietly had they gone about their business that neither the family of Joseph nor that of Mary knew they had even left Alexandria. The next day Joseph's brother moved his family, and Mary, for the first time since Jesus' birth, settled down with her little family to enjoy life in their own home. In less than a week Joseph secured work as a carpenter, and they were supremely happy.

^{123:1.2 (1356.5)} Jesus was about three years and two months old at the time of their return to Nazareth. He had stood all these travels very well and was in excellent health and full of childish glee and excitement at having premises of his own to run about in and to enjoy. But he greatly missed the association of his Alexandrian playmates.

^{123:1.3 (1356.6)} On the way to Nazareth Joseph had persuaded Mary that it would be unwise to spread the word among their Galilean friends and relatives that Jesus was a child of promise. They agreed to refrain from all mention of these matters to anyone. And they were both very faithful in keeping this promise.

예수가 네 살이 되던 1년 동안은 정상적인 육체적 발육과 비범한 정신적 활동이 있던 기간이었다. 그 당시에 그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이웃 아이인 야곱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예수와 야곱은 항상 재미있게 놀았으며, 그들은 자라면서 훌륭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행자가 되었다.

이 나사렛 가족의 생활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둘째 아이 야고보의 출생이었다. 예수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였으며, 아기의 초기 행동들을 관찰하려고 오랫동안 아기 주위에서 있곤 하였다.

같은 해 한여름에, 요셉은 마을의 공동 우물과 카라반들이 묵어가는 장소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이 후로 그는 날이 갈수록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두 명의 형제들과 기술자 몇 명과 연관하였고, 그들이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자신은 작업장에 남아 멩에나 쟁기 등을 만들거나 다른 목공일을 하였다. 그는 가족을 가공하고 새끼줄과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예수는 커가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돕는 일에 자기 시간의 반을 보냈고, 같은 양의 시간을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방방곡곡에서 오는 카라반 지휘-안내자들과 여행객들의 대화와 잡담을 들으면서 보냈다.

예수가 네 살이 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에, 카라반 여행객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악성 장(腸) 전염병이 발발하여 나사렛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였으므로, 나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져 있는 사리드 근방 메기도 거리에 있는 오빠의 시골집으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였다. 그들은 두 달이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에게 있어서 첫 체험이 된 농장에서의 생활을 매우 즐겼다.

제 2 장. 5살 되던 해(기원전 2년)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일 년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최초로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진심으로의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인 생각 조절자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도래하였는데, 그 조절자는 이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봉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인간적 존재가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사는 육신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체험을 획득한 조절자였다. 이 사건은 기원전 2년 2월 11일에 발생했다. 예수는, 이 생각 조절자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거하도록 받아들이고 그 마음들이 궁극적으로 영성화 되도록 하는 일과 자신들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토록 살아남도록 일하게 하는, 그 날 이전이나 이후의, 수도 없이 많

123:1.4 (1357.1) Jesus' entire fourth year was a period of normal physical development and of unusual mental activity. Meantime he had formed a very close attachment for a neighbor boy about his own age named Jacob. Jesus and Jacob were always happy in their play, and they grew up to be great friends and loyal companions.

123:1.5 (1357.2) The next important event in the life of this Nazareth family was the birth of the second child, James, in the early morning hours of April 2, 3 B.C. Jesus was thrilled by the thought of having a baby brother, and he would stand around by the hour just to observe the baby's early activities.

123:1.6 (1357.3) It was midsummer of this same year that Joseph built a small workshop close to the village spring and near the caravan tarrying lot. After this he did very little carpenter work by the day. He had as associates two of his brothers and several other mechanics, whom he sent out to work while he remained at the shop making yokes and plows and doing other woodwork. He also did some work in leather and with rope and canvas. And Jesus, as he grew up, when not at school, spent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helping his mother with home duties and watching his father work at the shop, meanwhile listening to the conversation and gossip of the caravan conductors and passengers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123:1.7 (1357.4) In July of this year, one month before Jesus was four years old, an outbreak of malignant intestinal trouble spread over all Nazareth from contact with the caravan travelers. Mary became so alarmed by the danger of Jesus being exposed to this epidemic of disease that she bundled up both her children and fled to the country home of her brother, several miles south of Nazareth on the Megiddo road near Sarid. They did not return to Nazareth for more than two months; Jesus greatly enjoyed this, his first experience on a farm.

2. THE FIFTH YEAR (2 B.C.)

123:2.1 (1357.5) In something more than a year after the return to Nazareth the boy Jesus arrived at the age of his first personal and wholehearted moral decision; and there came to abide with him a Thought Adjuster, a divine gift of the Paradise Father, which had aforetime served with Machiventa Melchizedek, thus gaining the experience of functioning in connection with the incarnation of a supermortal being living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is event occurred on February 11, 2 B.C. Jesus was no more aware of the coming of the divine Monitor than are the millions upon millions of other children who, before and since that day, have likewise received these

은 다른 아이들과 꼭 마찬가지로, 이 신성한 감시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2월 이었던 이날, 미가엘이 어린아이로서 육신화 함에 있어서의 고결한-순수성과 관계된, 우주 통치자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감시 임무가 종료되었다. 이 날 이후로, 인간으로서 육신화를 나타내는 동안 내내, 예수를 보호하는 임무는 내주 하는 조절자와 그리고 연관된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의 관리 안에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행성 상급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한정적인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배정된 중도 창조체들로부터 원조를 받기도 하였다.

예수는 같은 해 8월에 다섯 살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때를 그의 일생에서 5살 되던 해라고 부를 것이다. 기원전 2년인 이 해에, 예수의 다섯 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날인 7월 11일 밤, 예수는 그의 여동생 미리암의 탄생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다음날 저녁,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각기 독자적인 개별존재들로 태어나는 방식들에 관하여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부모들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요셉은 이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대해 시간을 내서 충실히 대답해 주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 예수의 질문은 항상 끊이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의 질문에 대해 그와 함께 토론하고,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에 떠오른 그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들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요셉은 새 가게를 지었고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너무 매여 있었던 나머지 야고보에게는 요람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었지만, 미리암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요셉이 미리 요람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편안한 침대 속에 누워 그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어린 예수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한껏 젖어있었다. 예수는 어린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마리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갈릴리의 이러한 유대인 가정보다 아이들을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매우 드물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누었다:

Thought Adjusters to indwell their minds and work for the ultimate spiritualization of these minds and the eternal survival of their evolving immortal souls.

123:2.2 (1357.6) On this day in February the direct and personal supervision of the Universe Rulers, as it was related to the integrity of the childlike incarnation of Michael, terminated. From that time on throughout the human unfolding of the incarnation, the guardianship of Jesus was destined to rest in the keeping of this indwelling Adjuster and the associated seraphic guardians,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by the ministry of midway creatures assigned for the performance of certain definite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of their planetary superiors.

123:2.3 (1357.7) Jesus was five years old in August of this year, and we will, therefore, refer to this as his fifth (calendar) year of life. In this year, 2 B.C., a little more than one month before his fifth birthday anniversary, Jesus was made very happy by the coming of his sister Miriam, who was born on the night of July 11. During the evening of the following day Jesus had a long talk with his father concerning the manner in which various groups of living things are born into the world as separate individuals. The most valuable part of Jesus' early education was secured from his parents in answer to his thoughtful and searching inquiries. Joseph never failed to do his full duty in taking pains and spending time answering the boy's numerous questions. From the time Jesus was five years old until he was ten, he was one continuous question mark. While Joseph and Mary could not always answer his questions, they never failed fully to discuss his inquiries and in every other possible way to assist him in his efforts to reach a satisfactory solution of the problem which his alert mind had suggested.

123:2.4 (1358.1) Since returning to Nazareth, theirs had been a busy household, and Joseph had been unusually occupied building his new shop and getting his business started again. So fully was he occupied that he had found no time to build a cradle for James, but this was corrected long before Miriam came, so that she had a very comfortable crib in which to nestle while the family admired her. And the child Jesus heartily entered into all these natural and normal home experiences. He greatly enjoyed his little brother and his baby sister and was of great help to Mary in their care.

123:2.5 (1358.2) There were few homes in the gentile world of those days that could give a child a better intellectual, moral, and religious training than the Jewish homes of Galilee. These Jews had a systematic program for rear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They divided a child's life into seven stages:

1. 생후 8일까지의 신생아

2. 젖먹이

3. 젖을 떼는 아이

4. 5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

5.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며,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르칠 책임을 갖게 되는 시기

6. 청소년기의 남, 여 아이들

7. 남, 여 젊은이들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까지만 아이 기르는 책임을 어머니에게 지우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인 경우 그 이후의 교육은 아버지에게 책임이 맡겨졌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해에 갈릴리 유대인들의 아동성장 다섯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마리아는 앞으로의 교육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예수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셉이 지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집안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예수에게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와 꽃들에 관한 지식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지붕 위(여름에는 침실로 사용됨)에 모래를 넣은 낮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예수로 하여금 지도를 그리거나 아람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까지 쓰는 실천 연습을 일찍부터 하게 하였으며, 예수는 오래지 않아서 이 세 가지의 언어 모두를 유창하게 읽고 쓰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거의 완전히 보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첫 번째 질병으로, 그는 다섯 번째 해(달력으로) 후반기 즈음에 약간의 소화불량을 체험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장남의 장래에 대해 자주 의논하였는데, 만약 너희가 그때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아무 걱정 없는, 단지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 3 장. 6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들 (기원전 1년)

어머니의 도움으로 예수는 이미 아람어의 갈

123:2.6 (1358.3) 1. The newborn child, the first to the eighth day.

123:2.7 (1358.4) 2. The suckling child.

123:2.8 (1358.5) 3. The weaned child.

123:2.9 (1358.6) 4. The period of dependence on the mother, lasting up to the end of the fifth year.

123:2.10 (1358.7) 5. The beginning independence of the child and, with sons, the father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ir education.

123:2.11 (1358.8) 6. The adolescent youths and maidens.

123:2.12 (1358.9) 7. The young men and the young women.

123:2.13 (1358.10) It was the custom of the Galilean Jews for the mother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a child's training until the fifth birthday, and then, if the child were a boy, to hold the father responsible for the lad's education from that time on. This year, therefore, Jesus entered upon the fifth stage of a Galilean Jewish child's career, and accordingly on August 21, 2 B.C., Mary formally turned him over to Joseph for further instruction.

123:2.14 (1358.11) Though Joseph was now assuming the direct responsibility for Jesus' intellectual and religious education, his mother still interested herself in his home training. She taught him to know and care for the vines and flowers growing about the garden walls which completely surrounded the home plot. She also provided on the roof of the house (the summer bedroom) shallow boxes of sand in which Jesus worked out maps and did much of his early practice at writing Aramaic, Greek, and later on, Hebrew, for in time he learned to read, write, and speak, fluently, all three languages.

123:2.15 (1358.12) Jesus appeared to be a well-nigh perfect child physically and continued to make normal progress mentally and emotionally. He experienced a mild digestive upset, his first minor illness, in the latter part of this, his fifth (calendar) year.

123:2.16 (1359.1) Though Joseph and Mary often talked about the future of their eldest child, had you been there, you would only have observed the growing up of a normal, healthy, carefree, but exceedingly inquisitive child of that time and place.

3. EVENTS OF THE SIXTH YEAR (1 B.C.)

123:3.1 (1359.2) Already, with his mother's help, Jesus

릴리 사투리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마리아도 그리스어를 약간 알았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스어 교본으로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히브리 경전의 사본—시편을 포함한 율법서와 예언서의 완벽한 해석본—이 사용되었다. 나사렛 전체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전권(全卷)의 성서 사본이 두 개밖에 없었으며, 그 중 하나를 이 목수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는 자라나면서 진지한 학도들과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접할 수 있었다. 예수는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귀중한 책의 보관 임무를 맡게 되었고, 또 그의 여섯 번째 생일에는 이 신성한 책은 알렉산드리아 친척들과 친지들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벌써 그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가 어린 시절에 첫 번째로 큰 충격을 체험한 것은, 그가 아직 채 여섯 살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에게는 자기 아버지—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하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방금 발생했던 약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난 실제로 모르겠구나.”라고 대답하자, 호기심이 많은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예수는 그의 육신적인 부모가 모든—지혜의 그리고 모든 것을—아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고 당황스러운 각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의 첫 번째 생각은, 지진은 하느님이 일으신 것이라고 예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런 대답은 즉각적으로 더 어렵고 당황스런 질문을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대답을 피하였다. 예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하느님이나 악마의 책임이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으로서 선한 영(靈)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영향으로 돌리려는 것에 매우 어려서부터 회의를 가졌다.

예수가 아직 여섯 살이 되기 전인 기원전 1년 초여름에,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이 자기들의 아들 요한을 데리고 나사렛 가족을 찾아왔다. 이 기간 동안 예수와 요한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들의 기억 속에 첫 번째 만남으로 간직되었다. 이들은 겨우 며칠밖에 머물지 못하였지만, 이 부모들은 아들들의 장래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른들이 의논에 열중하는 동안, 그 소년들은 지붕 위에 있는 모래 상자에서 벽돌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진짜 소년다운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하며 즐겼다.

had mastered the Galilean dialect of the Aramaic tongue; and now his father began teaching him Greek. Mary spoke little Greek, but Joseph was a fluent speaker of both Aramaic and Greek. The textbook for the study of the Greek language was the copy of the Hebrew scriptures — a complete version of the law and the prophets, including the Psalms — which had been presented to them on leaving Egypt. There were only two complete copies of the Scriptures in Greek in all Nazareth, and the possession of one of them by the carpenter's family made Joseph's home a much-sought place and enabled Jesus, as he grew up, to meet an almost endless procession of earnest students and sincere truth seekers. Before this year ended, Jesus had assumed custody of this priceless manuscript, having been told on his sixth birthday that the sacred book had been presented to him by Alexandrian friends and relatives. And in a very short time he could read it readily.

123:3.2 (1359.3) The first great shock of Jesus' young life occurred when he was not quite six years old. It had seemed to the lad that his father — at least his father and mother together — knew everything. Imagine, therefore, the surprise of this inquiring child, when he asked his father the cause of a mild earthquake which had just occurred, to hear Joseph say, “My son, I really do not know.” Thus began that long and disconcerting disillusionment in the course of which Jesus found out that his earthly parents were not all-wise and all-knowing.

123:3.3 (1359.4) Joseph's first thought was to tell Jesus that the earthquake had been caused by God, but a moment's reflection admonished him that such an answer would immediately be provocative of further and still more embarrassing inquiries. Even at an early age it was very difficult to answer Jesus' questions about physical or social phenomena by thoughtlessly telling him that either God or the devil was responsible. In harmony with the prevailing belief of the Jewish people, Jesus was long willing to accept the doctrine of good spirits and evil spirits as the possible explanation of mental and spiritual phenomena, but he very early became doubtful that such unseen influences were responsible for the physical happenings of the natural world.

123:3.4 (1359.5) Before Jesus was six years of age, in the early summer of 1 B.C., Zacharias and Elizabeth and their son John came to visit the Nazareth family. Jesus and John had a happy time during this, their first visit within their memories. Although the visitors could remain only a few days, the parents talked over many things, including the future plans for their sons. While they were thus engaged, the lads played with blocks in the sand on top of the house and in many other ways enjoyed themselves in true boyish fashion.

예루살렘 근처에서 왔던 요한과 만난 후,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안식일의 의식(儀式)들이나 회당에서의 설교 그리고 연례적인 기념일 축제들의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질문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러한 모든 절기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절기는 겨울철에 행해지는 등불을 밝히는 축제로, 8일간 계속되었으며, 첫째 날 밤에 한 개의 촛불을 켜고, 매일 밤마다 등불을 한 개씩 늘려 가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모세의 예배봉사들이 회복된 후에 성전의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초봄의 부림절 축제로, 에스더와 그녀에 의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장엄한 유월절 축제가 이어지며, 이 때 어른들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모여 축하를 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추수를 거두어들이는 첫-열매의 축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절기로서, 속죄의 날인 신년(新年)의 축제였다. 이러한 축제일들과 기념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어린 예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았고, 그런 후에는 천막축제 축제의 즐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때 모든 유대 민족은 여름 휴가철이었고, 밖에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환희와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같은 해 기간 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드리는 기도들에 대하여 그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예수는 자신의 땅에서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것을 고집하였다. 신(神)과의 엄숙하고도 존경이 담긴 교통의 형식으로부터 이탈된 이러한 방식은 그의 부모를, 특히 그의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고치라고 설득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르침을 받았던 그대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기를 주장하였다.

같은 해 6월, 요셉은 나사렛에 있는 가게를 그의 형제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건축자로서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가족의 수입은 세배 이상 늘어났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 이 나사렛 가족은 다시는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불어났고 계속되는 교육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게 되었지만 요셉의 수입도 증가하는 경비 못지않게 계속하여 늘어났다.

이 후 몇 년간 요셉은 나사렛과 그 근방에서 건축한 것 뿐 아니라, 가나, 베들레헴(갈릴리에 있는), 막달라, 나인, 세포리, 가버나움, 그리고 엔도르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였다. 야고보가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자라게 되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 근방의 성읍과 마을들을 자주 여행하였다. 예수는 관찰력이 예리하였고 그래서 집을 떠난 이 여행들에서 많은 실천적인 지식들을 얻었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 대해 또 이 세

123:3.5 (1359.6) Having met John, who came from near Jerusalem, Jesus began to evince an unusual interest in the history of Israel and to inquire in great detail as to the meaning of the Sabbath rites, the synagogue sermons, and the recurring feasts of commemoration. His father explained to him the meaning of all these seasons. The first was the midwinter festive illumination, lasting eight days, starting out with one candle the first night and adding one each successive night; this commemorated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Mosaic services by Judas Maccabee. Next came the early springtime celebration of Purim, the feast of Esther and Israel's deliverance through her. Then followed the solemn Passover, which the adults celebrated in Jerusalem whenever possible, while at home the children would remember that no leavened bread was to be eaten for the whole week. Later came the feast of the first-fruits, the harvest ingathering; and last, the most solemn of all, the feast of the new year, the day of atonement. While some of these celebrations and observances were difficult for Jesus' young mind to understand, he pondered them seriously and then entered fully into the jo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the annual vacation season of the whole Jewish people, the time when they camped out in leafy booths and gave themselves up to mirth and pleasure.

123:3.6 (1360.1) During this year Joseph and Mary had trouble with Jesus about his prayers. He insisted on talking to his heavenly Father much as he would talk to Joseph, his earthly father. This departure from the more solemn and reverent modes of communication with Deity was a bit disconcerting to his parents, especially to his mother, but there was no persuading him to change; he would say his prayers just as he had been taught, after which he insisted on having "just a little talk with my Father in heaven."

123:3.7 (1360.2) In June of this year Joseph turned the shop in Nazareth over to his brothers and formally entered upon his work as a builder. Before the year was over, the family income had more than trebled. Never again, until after Joseph's death, did the Nazareth family feel the pinch of poverty. The family grew larger and larger, and they spent much money on extra education and travel, but always Joseph's increasing income kept pace with the growing expenses.

123:3.8 (1360.3) The next few years Joseph did considerable work at Cana, Bethlehem (of Galilee), Magdala, Nain, Sepphoris, Capernaum, and Endor, as well as much building in and near Nazareth. As James grew up to be old enough to help his mother with the housework and care of the younger children, Jesus made frequent trips away from home with his father to these surrounding towns and villages. Jesus was a keen observer and gained much practical knowledge

상에서 그가 살았던 방법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축적해 두었다.

이 해에 예수는 가정 기강과 가족 협동의 요구에 맞도록 그의 강렬한 감정과 활력에 넘치는 충동을 자제하는데 많은 진보를 보였다. 마리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매우 공평하고 엄격하게 단련을 시키는 자였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를 더 많이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그 소년의 곁에 앉아서, 가족들 전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개인적 욕망을 자제하는 단련에서 비롯되는 제약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 이유와 그 이면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그 상황이 예수에게 다 설명되었을 때, 그는 항상 부모의 바램들과 가족의 규정들에 현명하게 그리고 기꺼이 협조하였다.

예수는 낮에는 꽃들과 식물들에 대해 그리고 밤에는 별들에 대해 연구하는 일에 여가시간의 대부분—어머니가 집안 일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을 보냈다. 그는 나사렛의 엄격한 가정 속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취침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까지 자지 않은 채 누워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신기롭게 응시하기를 좋아하는 별스러운 경향을 보였다.

제 4 장. 7살 되던 해(서기 1년)

이 해는 예수의 일생에 정말로 사건 많은 한 해였다. 1월 초 갈릴리에는 굉장한 폭설이 발생하였다. 눈이 2피트가 넘게 왔으며, 이것은 예수의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온 눈이었고 나사렛에서는 100년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본받아 그들에게는 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 그들이 자주 목격하고 또 호화로운 모습인 예식들을 흉내 내며 놀았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지만, 후대의 아이들이 대단히 즐겼던 그런 조직화된 오락은 거의 없었다.

예수는 이웃집 소년과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와 함께, 가족이 경영하는 목공소 한쪽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그곳에서 톱밥과 나무토막들을 가지고 매우 재미있게 놀았다. 안식일 날에는 어떤 놀이들이 금지되었는데, 예수로서는 그것들이 무슨 해(害)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노는 데 소질이 있었으나 그 시절 그 세대의 환경으로는 그런 자질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열네 살까지, 예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랑하고 밝게 보냈다.

마리아는 집에 붙어 있는 축사 지붕에 비둘기

from these trips away from home; he was assiduously storing up knowledge regarding man and the way he lived on earth.

123:3.9 (1360.4) This year Jesus made great progress in adjusting his strong feelings and vigorous impulses to the demands of family co-operation and home discipline. Mary was a loving mother but a fairly strict disciplinarian. In many ways, however, Joseph exerted the greater control over Jesus as it was his practice to sit down with the boy and fully explain the real and underlying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disciplinary curtailment of personal desires in deference to the welfare and tranquillity of the entire family. When the situation had been explained to Jesus, he was always intelligently and willingly co-operative with parental wishes and family regulations.

123:3.10 (1360.5) Much of his spare time — when his mother did not require his help about the house — was spent studying the flowers and plants by day and the stars by night. He evinced a troublesome penchant for lying on his back and gazing wonderingly up into the starry heavens long after his usual bedtime in this well-ordered Nazareth household.

4. THE SEVENTH YEAR (A.D. 1)

123:4.1 (1361.1) This was, indeed, an eventful year in Jesus' life. Early in January a great snowstorm occurred in Galilee. Snow fell two feet deep, the heaviest snowfall Jesus saw during his lifetime and one of the deepest at Nazareth in a hundred years.

123:4.2 (1361.2) The play life of Jewish children in the times of Jesus was rather circumscribed; all too often the children played at the more serious things they observed their elders doing. They played much at weddings and funerals, ceremonies which they so frequently saw and which were so spectacular. They danced and sang but had few organized games, such as children of later days so much enjoy.

123:4.3 (1361.3) Jesus, in company with a neighbor boy and later his brother James, delighted to play in the far corner of the family carpenter shop, where they had great fun with the shavings and the blocks of wood. It was always difficult for Jesus to comprehend the harm of certain sorts of play which were forbidden on the Sabbath, but he never failed to conform to his parents' wishes. He had a capacity for humor and play which was afforded little opportunity for expression in the environment of his day and generation, but up to the age of fourteen he was cheerful and lighthearted most of the time.

123:4.4 (1361.4) Mary maintained a dovecote on top of

집을 마련해 놓았고, 그들은 비둘기를 팔아 특별 자선기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예수는 그것에서 십 일조를 떼어 회당의 직원에게 주고 난 후 그 나머지 기금을 맡아 관리-운영하였다.

이때까지 예수는 실제 사고는 단 한번밖에 체험하지 않았는데, 천막으로 지붕을 만든 침실로 올라가는 뒷마당 돌계단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 사고는 7월에 동쪽으로부터 불어 온 예기치 못한 모래폭풍 때문이었다. 고온 모래를 싣고 오는 이 열풍은 보통 우기(雨期)에 불어 왔으며 3월과 4월에 특히 심하였다. 7월에 이 폭풍이 분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폭풍이 왔을 때 예수는 평소처럼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으며, 건기(乾期) 중에는 이곳이 그의 놀이방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던 그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가 있은 후, 요셉은 계단 양옆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미리 방지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던 일시적인 중도 수호자들, 그 소년을 보호하도록 임명되어 있는 한 명의 1차 중도자와 다른 한 명의 2차 중도자의 실책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수호 세라핌천사의 책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 엔도르에 간 사이에 발생한 이 조그만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매우 염려가 되어, 어리석게도 몇 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자기 옆에 붙들어 두려고 애썼다.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늘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물질적 사고에, 천상의 개인성들은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지 중도 창조체만이 운명의 남녀들의 개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질적인 조건들에 개입할 수 있는데, 아무리 특별한 상황일지라도 이들은 자기 상급자들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호기심 많고 탐구심 많은 이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많은 사소한 사고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만약 너희가 활동적인 한 소년의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본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관념을 아주 잘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 부모들, 특히 그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우려를 끼치게 했었는지도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나사렛 가족의 네 번째 아이 요셉이 서기 1년 3월 16일 수요일에 태어났다.

제 5 장. 나사렛에서의 학교 시절

예수는 이제 일곱 살이 되었으며, 이 나이에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나사렛에

the animal house adjoining the home, and they used the profits from the sale of doves as a special charity fund, which Jesus administered after he deducted the tithe and turned it over to the officer of the synagogue.

123:4.5 (1361.5) The only real accident Jesus had up to this time was a fall down the back-yard stone stairs which led up to the canvas-roofed bedroom. It happened during an unexpected July sandstorm from the east. The hot winds, carrying blasts of fine sand, usually blew during the rainy season, especially in March and April. It was extraordinary to have such a storm in July. When the storm came up, Jesus was on the housetop playing, as was his habit, for during much of the dry season this was his accustomed playroom. He was blinded by the sand when descending the stairs and fell. After this accident Joseph built a balustrade up both sides of the stairway.

123:4.6 (1361.6) There was no way in which this accident could have been prevented. It was not chargeable to neglect by the midway temporal guardians, one primary and one secondary midwayer having been assigned to the watchcare of the lad; neither was it chargeable to the guardian seraphim. It simply could not have been avoided. But this slight accident, occurring while Joseph was absent in Endor, caused such great anxiety to develop in Mary's mind that she unwisely tried to keep Jesus very close to her side for some months.

123:4.7 (1361.7) Material accidents, commonplace occurrences of a physical nature, are not arbitrarily interfered with by celestial personalities.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only midway creatures can intervene in material conditions to safeguard the persons of men and women of destiny, and even in special situations these beings can so act only in obedience to the specific mandates of their superiors.

123:4.8 (1361.8) And this was but one of a number of such minor accidents which subsequently befell this inquisitive and adventurous youth. If you envisage the average childhood and youth of an aggressive boy, you will have a fairly good idea of the youthful career of Jesus, and you will be able to imagine just about how much anxiety he caused his parents, particularly his mother.

123:4.9 (1362.1) The fourth member of the Nazareth family, Joseph, was born Wednesday morning, March 16, A.D. 1.

5. SCHOOL DAYS IN NAZARETH

123:5.1 (1362.2) Jesus was now seven years old, the age when Jewish children were supposed to begin their formal education in the synagogue schools.

서, 예수는 사건 많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소년은 이미 두 가지 언어들,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고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해 나갈 새로운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3년 동안—그가 열 살이 될 때까지—, 그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3년의 이 기간 동안 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있는 그대로 율법서의 기초 과정을 공부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율법에 있는 보다 어려운 가르침들을 크게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암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이 회당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교육받은 “계명의 아들”로서—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부여됨— 회당 관료들로부터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따라서 그 해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사렛에서는 학생들이 마루에 반원형(半圓形)으로 앉았으며, 카잔이라고 불리는, 회당 관리자인 그들의 선생님은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하여 다른 율법서들을 차례로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와 시편을 공부하였다. 나사렛의 회당은 히브리어로 쓰인 성서 전권(全卷) 하나를 갖고 있었다. 열두 살까지는 성서만을 공부하였다. 여름철에는 수업시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예수는 히브리어를 일찍 통달하였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어떤 저명한 방문자도 나사렛에 체류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기적인 안식일 예배봉사 때 회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어 경전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곤 하였다.

물론, 이 회당 학교들에는 교과서들이 없었다. 수업 방식은, 카잔이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 학생들이 한 음성으로 그를 따라 반복해 읽었다. 기록된 율법 책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크게 읽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다.

다음으로, 그의 공식적인 학교생활에 이외에, 예수는 자기 아버지의 수리소를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로써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오는 많은 인간 본성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이가 들게 되자, 그는 쉬거나 요기하려고 우물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카라반들과도 자유스럽게 어울렸다. 유창한 그리스어 덕분에 예수는 대부분의 카라반 여행자들이나 지휘-안내자들과 대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Accordingly, in August of this year he entered upon his eventful school life at Nazareth. Already this lad was a fluent reader, writer, and speaker of two languages, Aramaic and Greek. He was now to acquaint himself with the task of learning to read, write, and speak the Hebrew language. And he was truly eager for the new school life which was ahead of him.

123:5.2 (1362.3) For three years — until he was ten — he attended the elementary school of the Nazareth synagogue. For these three years he studied the rudiments of the Book of the Law as it was recorded in the Hebrew tongue.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he studied in the advanced school and committed to memory, by the method of repeating aloud, the deeper teachings of the sacred law. He graduated from this school of the synagogue during his thirteenth year and was turned over to his parents by the synagogue rulers as an educated “son of the commandment” — henceforth a responsible citizen of the commonwealth of Israel, all of which entailed his attendance at the Passovers in Jerusalem; accordingly, he attended his first Passover that year in company with his father and mother.

123:5.3 (1362.4) At Nazareth the pupils sat on the floor in a semicircle, while their teacher, the chazan, an officer of the synagogue, sat facing them. Beginning with the Book of Leviticus, they passed on to the study of the other books of the law, followed by the study of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 Nazareth synagogue possessed a complete copy of the Scriptures in Hebrew. Nothing but the Scriptures was studied prior to the twelfth year. In the summer months the hours for school were greatly shortened.

123:5.4 (1362.5) Jesus early became a master of Hebrew, and as a young man, when no visitor of prominence happened to be sojourning in Nazareth, he would often be asked to read the Hebrew scriptures to the faithful assembled in the synagogue at the regular Sabbath services.

123:5.5 (1362.6) These synagogue schools, of course, had no textbooks. In teaching, the chazan would utter a statement while the pupils would in unison repeat it after him. When having access to the written books of the law, the student learned his lesson by reading aloud and by constant repetition.

123:5.6 (1362.7) Next, in addition to his more formal schooling, Jesus began to make contact with human nature from the four quarters of the earth as men from many lands passed in and out of his father's repair shop. When he grew older, he mingled freely with the caravans as they tarried near the spring for rest and nourishment. Being a fluent speaker of Greek, he had little trouble in conversing with the majority of the caravan travelers and conductors.

나사렛은 카라반들이 경유하는 곳이었고 여행 경로들의 교차점이었으며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동시에 그곳은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을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유대 지방에서 있던 그들의 실천 관행보다 더욱 자유스럽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갈릴리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도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진다는 두려움에서 연유된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도 가장 개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였다.

예수는 도덕적인 교육과 영적 수양을 주로 가정에서 받아들였다. 그의 지적이고 신학적인 교육은 카잔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실제 교육—일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겨루는 실재적 시험에 대비한 가슴과 마음의 준비—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속에서 받았다. 연령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울린 사람들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인간 종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하였다. 예수는 그 속에서 매우 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속들이 납득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회당에서 교육을 받는 전 과정 동안, 그는 세 가지 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매우 총명한 학생이었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그의 학교 안에서 과정을 완결하는 때에, “그 소년을 가르칠 수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탐구적인 질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요셉에게 털어놓았다.

예수는 자신의 전체 공부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회당에서의 주기적인 안식일 설교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머물게 된 저명한 방문자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는 자라면서, 유대인들 전체의 세계에서 위대하게 손꼽히는 많은 사상가들이 해석하는 견해들을 들었고, 또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다.

일곱 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탄생 기념 성구(聖句)’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동안 내내 하나의 황금률(黃金律)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들이 열세 살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성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곤 하였다. 예수가 선택한 성구는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있는 것으로: “주 하느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를 감싸 치료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이었다.

123:5.7 (1362.8) Nazareth was a caravan way station and crossroads of travel and largely gentile in population; at the same time it was widely known as a center of liberal interpretation of Jewish traditional law. In Galilee the Jews mingled more freely with the gentiles than was their practice in Judea. And of all the cities of Galilee, the Jews of Nazareth were most liberal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restrictions based on the fears of contamination as a result of contact with the gentiles. And these conditions gave rise to the common saying in Jerusalem,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123:5.8 (1363.1) Jesus received his moral training and spiritual culture chiefly in his own home. He secured much of his intellectual and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chazan. But his real education — that equipment of mind and heart for the actual test of grappling with the difficult problems of life — he obtained by mingling with his fellow men. It was this close association with his fellow men, young and old, Jew and gentile, that afforded him the opportunity to know the human race. Jesus was highly educated in that he thoroughly understood men and devotedly loved them.

123:5.9 (1363.2) Throughout his years at the synagogue he was a brilliant student, possessing a great advantage since he was conversant with three languages. The Nazareth chazan, on the occasion of Jesus’ finishing the course in his school, remarked to Joseph that he feared he “had learned more from Jesus’ searching questions” than he had “been able to teach the lad.”

123:5.10 (1363.3) Throughout his course of study Jesus learned much and derived great inspiration from the regular Sabbath sermons in the synagogue. It was customary to ask distinguished visitors, stopping over the Sabbath in Nazareth, to address the synagogue. As Jesus grew up, he heard many great thinkers of the entire Jewish world expound their views, and many also who were hardly orthodox Jews since the synagogue of Nazareth was an advanced and liberal center of Hebrew thought and culture.

123:5.11 (1363.4) When entering school at seven years (at this time the Jews had just inaugurated a compulsory education law), it was customary for the pupils to choose their “birthday text,” a sort of golden rule to guide them throughout their studies, one upon which they often expatiated at their graduation when thirteen years old. The text which Jesus chose was from the Prophet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for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meek,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set the spiritual prisoners free.”

나사렛은 히브리 민족의 24명의 제사장들이 위치하는 중심지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의 제사장들은 전통적인 계명들의 해석에 있어서 유대 지방의 학자들이나 랍비들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좀 더 자유로웠다. 그래서 요셉은 안식일 오후에 예수를 데리고 종종 산책을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사방의 갈릴리 지방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집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맑은 날에는 북서쪽으로 갈멜산의 한쪽 능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 내려간 것도 볼 수 있었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예언자들 중에서 초기 사람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는 아함을 책망하고 바알의 사제들의 가면을 벗긴 사람이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헤르몬 산봉우리가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높이가 3,000피트나 되는 상부 능선은 만년설로 빛나고 있었다. 멀리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을 식별할 수 있고, 더 멀리로는 모압의 험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데카폴리스에 있는 그리스-로마 풍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벽에 해가 비칠 때, 그들은 원형 극장들과 허세를 부리는 듯이 서있는 높은 신전들과 함께 그 도시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편으로 지는 해를 향하여 거닐 때에는, 서쪽으로 멀리 지중해의 배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예수는 나사렛을 드나드는 카라반 행렬들을 사방으로부터 관찰 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길보아산과 사마리아까지 뻗어있는 에스드렐론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를 내려다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시골길을 산책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을 공부하였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훈련은 가정에서 받은 것 이외에도, 자연과 함께 존경이 담기고 공경하는 접촉으로 했었어야만 했다.

여덟 살이 되기 전에, 그는 나사렛의 모든 어머니들과 젊은 여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접촉하고 성읍 전체에 관한 한담을 나누던 사교 중심지들 중의 하나였던, 그의 집 가까이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집에서 기르는 소의 우유를 짜고 다른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그는 또한 치즈 만드는 법과 천을 짜는 법도 배웠다. 열 살이 되자, 그는 능숙하게 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와 이웃 소년 야콥이 냇가 가까이에서 일하던 도공(陶工)과 친구가 된 것도 바로 이 때였으며; 나단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자기 물레 위에서 흙을 주무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커서 함께 도공이 되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였다. 나단은 이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였고, 종종 그들에게 진흙을 주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들에게 여러 다른 물건들과 동물들을 만드는 경쟁을 하게 하여

^{123:5.12 (1363.5)} Nazareth was one of the twenty-four priest centers of the Hebrew nation. But the Galilean priesthood was more libera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laws than were the Judean scribes and rabbis. And at Nazareth they were also more liberal regarding the observance of the Sabbath. It was therefore the custom for Joseph to take Jesus out for walks on Sabbath afternoons, one of their favorite jaunts being to climb the high hill near their home, from which they could obtain a panoramic view of all Galilee. To the northwest, on clear days, they could see the long ridge of Mount Carmel running down to the sea; and many times Jesus heard his father relate the story of Elijah, one of the first of that long line of Hebrew prophets, who reproved Ahab and exposed the priests of Baal. To the north Mount Hermon raised its snowy peak in majestic splendor and monopolized the skyline, almost 3,000 feet of the upper slopes glistening white with perpetual snow. Far to the east they could discern the Jordan valley and, far beyond, the rocky hills of Moab. Also to the south and the east, when the sun shone upon their marble walls, they could see the Greco-Roman cities of the Decapolis, with their amphitheatres and pretentious temples. And when they lingered toward the going down of the sun, to the west they could make out the sailing vessels on the distant Mediterranean.

^{123:5.13 (1364.1)} From four directions Jesus could observe the caravan trains as they wended their way in and out of Nazareth, and to the south he could overlook the broad and fertile plain country of Esdraelon, stretching off toward Mount Gilboa and Samaria.

^{123:5.14 (1364.2)} When they did not climb the heights to view the distant landscape, they strolled through the countryside and studied nature in her various moods in accordance with the seasons. Jesus' earliest training, aside from that of the home hearth, had to do with a reverent and sympathetic contact with nature.

^{123:5.15 (1364.3)} Before he was eight years of age, he was known to all the mothers and young women of Nazareth, who had met him and talked with him at the spring, which was not far from his home, and which was one of the social centers of contact and gossip for the entire town. This year Jesus learned to milk the family cow and care for the other animals. During this and the following year he also learned to make cheese and to weave. When he was ten years of age, he was an expert loom operator. It was about this time that Jesus and the neighbor boy Jacob became great friends of the potter who worked near the flowing spring; and as they watched Nathan's deft fingers mold the clay on the potter's wheel, many times both of them determined to be potters when they grew up. Nathan was very fond of the lads and often gave them clay to play with, seeking to stimulate their

그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애썼다.

creative imaginations by suggesting competitive efforts in modeling various objects and animals.

제 6 장. 8살 되던 해(기원후 2년)

6. HIS EIGHTH YEAR (A.D. 2)

이 해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낸 한 해였다. 예수는 비범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지런하였고, 학생들 중에서 보다 진취성을 보이는 3분의 1에 속하였다. 그는 맡은 일을 잘해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일 정도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일 주일 동안에는 대개, 예수는 막달라 근처의 갈릴리바다 해안에서 어부인 그의 삼촌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사렛에서 5마일 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농장에 있는 외삼촌(자기 어머니의 형제)과 시간을 보냈다.

123:6.1 (1364.4) This was an interesting year at school. Although Jesus was not an unusual student, he was a diligent pupil and belonged to the more progressive third of the class, doing his work so well that he was excused from attendance one week out of each month. This week he usually spent either with his fisherman uncle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near Magdala or on the farm of another uncle (his mother's brother) five miles south of Nazareth.

비록 그의 어머니는 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였지만, 차츰 이렇게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었다. 예수의 삼촌들과 숙모들은 모두 그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 해와 그 뒤의 몇 년 동안, 예수가 매 달 자기들 집으로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경쟁하곤 하였다. 삼촌의 농장을 방문한 그의 첫 번째(갓난아이 이후로)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이 해 1월에 있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의 일주일간의 첫 번째 고기잡이 체험은 5월에 발생하였다.

123:6.2 (1364.5) Although his mother had become unduly anxious about his health and safety, she gradually became reconciled to these trips away from home. Jesus' uncles and aunts were all very fond of him, and there ensued a lively competition among them to secure his company for these monthly visits throughout this and immediately subsequent years. His first week's sojourn on his uncle's farm (since infancy) was in January of this year; the first week's fishing experience on the Sea of Galilee occurred in the month of May.

이 무렵에 예수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수학선생을 만났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산술(算術)을 배웠고,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숫자와 공간 그리고 비율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키웠다.

123:6.3 (1364.6) About this time Jesus met a teacher of mathematics from Damascus, and learning some new techniques of numbers, he spent much time on mathematics for several years. He developed a keen sense of numbers, distances, and proportions.

예수는 그의 동생 야고보와 노는 것을 매우 즐기 시작하였으며 이 해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게 철자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23:6.4 (1364.7) Jesus began to enjoy his brother James very much and by the end of this year had begun to teach him the alphabet.

이 해에 예수는 낙농제품을 주는 대신으로 수금을 교습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는 모든 음악적인 것을 남달리 좋아하였다. 나중에는 그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선동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예수는 능숙한 수금 연주자가 되었고 그의 비범한 연주 실력과 뛰어난 즉흥곡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123:6.5 (1364.8) This year Jesus made arrangements to exchange dairy products for lessons on the harp. He had an unusual liking for everything musical. Later on he did much to promote an interest in vocal music among his youthful associates. By the time he was eleven years of age, he was a skillful harpist and greatly enjoyed entertaining both family and friends with his extraordinary interpretations and able improvisations.

예수가 학교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계속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을 동안, 부모들과 선생들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계속적으로 과학과 종교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해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 그는 특히 팔레스타인의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또한 그는 나사렛과 요단 계곡의 온도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는 그러한 지적이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그치지 않았다.

123:6.6 (1365.1) While Jesus continued to make enviable progress at school, all did not run smoothly for either parents or teachers. He persisted in asking many embarrassing questions concerning both science and religion, particularly regarding geography and astronomy. He was especially insistent on finding out why there was a dry season and a rainy season in Palestine. Repeatedly he sought the explanation for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emperatures of Nazareth and the Jordan valley. He simply never ceased to ask such intelligent but perplexing questions.

그의 세 번째 남동생 시몬이 같은 해 서기 2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다.

2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의 선생들 중 하나인 나호르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가리아의 집을 방문한 후에, 비슷한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왔다. 그는 요한의 아버지의 부추김을 받아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의 솔직함과 비전통적인 태도에 다소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러한 태도를 갈릴리가 히브리 정통 교육과 문화에서 격리되어 있는 탓으로 돌렸으며, 그는 예수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문화의 중심지에서 교육과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언하였다. 마리아는 그의 설득에 거의 동의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맏아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를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자라서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였지만 그러한 운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리라는 것에는 실제로 의심한 적이 결코 없었다. 나호르의 조언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 갔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나호르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예수에게 맡기자고 제안하였다. 예수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또한 이웃의 가장 친한 놀이 친구 야곱의 아버지인 석공(石工)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이를 후에 대답하기를, 자기 부모들과 충고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기 자신은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논해” 보기로 결정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에 완전하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나의 외모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나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인 낯선 사람들보다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 더욱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들은 모두 그의 대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나호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예수가 집을 떠나는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이었다.

123:6.7 (1365.2) His third brother, Simon, was born on Friday evening, April 14, of this year, A.D. 2.

123:6.8 (1365.3) In February, Nahor, one of the teachers in a Jerusalem academy of the rabbis, came to Nazareth to observe Jesus, having been on a similar mission to Zacharias's home near Jerusalem. He came to Nazareth at the instigation of John's father. While at first he was somewhat shocked by Jesus' frankness and unconventional manner of relating himself to things religious, he attributed it to the remoteness of Galilee from the centers of Hebrew learning and culture and advised Joseph and Mary to allow him to take Jesus back with him to Jerusalem, where he could have the advantages of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center of Jewish culture. Mary was half persuaded to consent; she was convinced her eldest son was to become the Messiah, the Jewish deliverer; Joseph hesitated; he was equally persuaded that Jesus was to grow up to become a man of destiny, but what that destiny would prove to be he was profoundly uncertain. But he never really doubted that his son was to fulfill some great mission on earth. The more he thought about Nahor's advice, the more he questioned the wisdom of the proposed sojourn in Jerusalem.

123:6.9 (1365.4) Because of this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Joseph and Mary, Nahor requested permission to lay the whole matter before Jesus. Jesus listened attentively, talked with Joseph, Mary, and a neighbor, Jacob the stone mason, whose son was his favorite playmate, and then, two days later, reported that since there was such a difference of opinion among his parents and advisers, and since he did not feel compete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such a decision, not feeling strongly one way or the other, in view of the whole situation, he had finally decided to “talk with my Father who is in heaven”; and while he was not perfectly sure about the answer, he rather felt he should remain at home “with my father and mother,” adding, “they who love me so much should be able to do more for me and guide me more safely than strangers who can only view my body and observe my mind but can hardly truly know me.” They all marveled, and Nahor went his way, back to Jerusalem. And it was many years before the subject of Jesus' going away from home again came up for consideration.

제 124 편 예수의 유년기 후기

⇨ 123

유랜시아 책

12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4 편 예수의 유년기 후기

섹션

소개

제 1 장. 예수가 9살 되던 해(서기 3년)

제 2 장. 10살 되던 해(서기 4년)

제 3 장. 11살 되던 해(서기 5년)

제 4 장. 12살 되던 해(서기 6년)

제 5 장. 13살 되던 해(서기 7년)

제 6 장.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PAPER 124

THE LATER CHILDHOOD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Ninth Year (A.D. 3)

2. The Tenth Year (A.D. 4)

3. The Eleventh Year (A.D. 5)

4. The Twelfth Year (A.D. 6)

5. His Thirteenth Year (A.D. 7)

6. The Journey to Jerusalem

소개

예수가 비록 학교 교육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면 갈릴리에 있던 것보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적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토록 훌륭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문명화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몰려오는 여러 계층의 수많은 남녀 사람들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었다라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오직 유대 계통의 교육밖에는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이방인들을 납득하는 데 더욱 수용적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교육을 확보하였고 훈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히브리 신학에 대한 동방 또는 바빌로니아적 시각과 서방 또는 그리스적 시각이 어떤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뛰어나고 균형 잡힌 관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INTRODUCTION

^{124:0.1 (1366.1)} ALTHOUGH Jesus might have enjoyed a better opportunity for schooling at Alexandria than in Galilee, he could not have had such a splendid environment for working out his own life problems with a minimum of educational guidanc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great advantage of constantly contacting with such a large number of all classes of men and women hailing from every part of the civilized world. Had he remained at Alexandria, his education would have been directed by Jews and along exclusively Jewish lines. At Nazareth he secured an education and received a training which more acceptably prepared him to understand the gentiles, and which gave him a better and more balanced idea of the relative merits of the Eastern, or Babylonian, and the Western, or Hellenic, views of Hebrew theology.

제 1 장. 예수가 9살 되던 해(서기 3년)

예수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는 이 해에 자신의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흔히 앓는 사소한 병을 앓기도 하였다.

1. JESUS' NINTH YEAR (A.D. 3)

^{124:1.1 (1366.2)} Though it could hardly be said that Jesus was ever seriously ill, he did have some of the minor ailments of childhood this year, along with his brothers and baby sister.

학교 교육은 계속되었고,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주일 가량은 해방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학생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웃 도시로 여행을 하는 일과 나사렛 남쪽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 머무는 일 그리고 막달라 지역으로부터 낚시 여행을 나가는 일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기를 계속하였다.

형상들과 초상화들 그리고 그림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우상이라는 카잔(선생)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가 감히 도전하려고 하였던 이 해 겨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예수는 경치를 그리는 일 뿐 아니라 질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매우 다양한 물체들을 만들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유대인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때까지 그는 그의 부모들의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시켜 왔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그가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납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목탄으로 학교 마루에 선생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철없는 학생들 중 하나가 발견하게 되자, 학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그림은 낮에 있었던 그대로 그곳에 있었고, 여러 명의 장로들이 그것을 본 후에, 그 위원회는 요셉을 방문하여 그의 장남이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인 자기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처음 듣는 불평은 아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를 향하여 심하게 쏟아 부어졌던 모든 비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예수는 뒷문 바로 밖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비난에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나쁜 것이라고 취급받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걸어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담하게 마주 섰다. 장로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재미있고 웃어넘기는 에피소드로 넘기려고 하였지만, 한 두 사람은 그 소년을 불경스럽거나 아니면 무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였다.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리아는 화를 냈지만, 예수는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자, 용기 있게 자기 관점을 옹호하였으며, 이 일뿐만 아니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더할 나위 없는 자아-통제를 보이면서 발표하였다. 그러자 그 위원회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마리아는 예수가 학교에서는 이러한 미심쩍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에서만큼은 흙으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요셉을 설득해 보고자 애썼지만, 그는 율법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야만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예수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물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그릇되었다는 것에 수궁이 가지 않았으며, 본인의 어린 시절에 큰 고난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즐기는 그러한 놀이를 포기해야 한

124:1.2 (1366.3) School went on and he was still a favored pupil, having one week each month at liberty, and he continued to divide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trips to neighboring cities with his father, sojourns on his uncle's farm south of Nazareth, and fishing excursions out from Magdala.

124:1.3 (1366.4) The most serious trouble as yet to come up at school occurred in late winter when Jesus dared to challenge the chazan regarding the teaching that all images, pictures, and drawings were idolatrous in nature. Jesus delighted in drawing landscapes as well as in modeling a great variety of objects in potter's clay. Everything of that sort was strictly forbidden by Jewish law, but up to this time he had managed to disarm his parents' objection to such an extent that they had permitted him to continue in these activities.

124:1.4 (1366.5) But trouble was again stirred up at school when one of the more backward pupils discovered Jesus drawing a charcoal picture of the teacher on the floor of the schoolroom. There it was, plain as day, and many of the elders had viewed it before the committee went to call on Joseph to demand that something be done to suppress the lawlessness of his eldest son. And though this was not the first time complaints had come to Joseph and Mary about the doings of their versatile and aggressive child, this was the most serious of all the accusations which had thus far been lodged against him. Jesus listened to the indictment of his artistic efforts for some time, being seated on a large stone just outside the back door. He resented their blaming his father for his alleged misdeeds; so in he marched, fearlessly confronting his accusers. The elders were thrown into confusion. Some were inclined to view the episode humorously, while one or two seemed to think the boy was sacrilegious if not blasphemous. Joseph was nonplused, Mary indignant, but Jesus insisted on being heard. He had his say, courageously defended his viewpoint, and with consummate self-control announced that he would abide by the decision of his father in this as in all other matters controversial. And the committee of elders departed in silence.

124:1.5 (1367.1) Mary endeavored to influence Joseph to permit Jesus to model in clay at home, provided he promised not to carry on any of these questionable activities at school, but Joseph felt impelled to rule that the rabbinic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commandment should prevail. And so Jesus no more drew or modeled the likeness of anything from that day as long as he lived in his father's house. But he was unconvinced of the wrong of what he had done, and to give up such a favorite pastime constituted one of the great trials of his young life.

다는 사실도 수궁할 수 없었다.

6월 하순,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보산 정상에 처음으로 올라갔다. 맑은 날씨였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것은 아홉 살 난 그 소년에게,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 세계를 응시한 것과 같았다.

예수의 둘째 여동생인 마르다는 9월 13일 목요일 밤에 태어났다. 한동안 집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은 마르다가 태어난 지 3주가 지난 후 자기 집에 덧붙여서 작업장 겸 침실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작은 작업대를 만들어 주었고, 예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연장들을 갖게 되었다. 예수는 여러 해 동안 틈나는 대로 이 작업대에서 일을 하였고, 멍에를 만드는데 상당한 숙련자가 되었다.

같은 해 겨울과 그 다음해 겨울은 나사렛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 예수는 산 위에 덮인 눈을 보았었고, 나사렛에도 몇 번 눈이 오기도 하였으나 땅 위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 해에 그는 처음으로 얼음을 보게 되었다. 물이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소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세계와 그 구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는데, 그는—끓는 주전자에서 증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이 소년 안에서 체현하는 개인성은 아직 이것이 전부였지만, 한편 광활한 우주의 모든 사물의 실제적인 창조자이자 조직자였다.

나사렛의 기후는 혹독하지 않았다. 1월은 가장 추운 달이었고, 평균 기온은 화씨로 50도 정도였다. 7월과 8월은 가장 더운 달로, 평균 기온은 75도에서 90도 정도였다. 팔레스타인에는 산으로부터 요단강과 사해에 이르기까지 한대(寒帶)와 열대(熱帶)기후가 두루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기후 조건에서 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무더운 여름철 동안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서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매번 시시때때로 동쪽의 사막으로부터는 뜨거운 바람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왔다.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季)가 끝날 무렵인 2월부터 3월까지 불어왔다. 우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고 비가 끊임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에는 여름과 겨울, 우기와 건기(乾期)의 두 계절만 있었다. 1월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4월말이 되면 전 지역은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되었다.

같은 해 5월 예수는 그의 삼촌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일로 도움을 주었다. 13세가 되기 이전에 그는 쇠를 다루는 일을 제외하고는 나사렛 주변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종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실천적인 모든 것들을 어느 정

124:1.6 (1367.2) In the latter part of June, Jesus, in company with his father, first climbed to the summit of Mount Tabor. It was a clear day and the view was superb. It seemed to this nine-year-old lad that he had really gazed upon the entire world excepting India, Africa, and Rome.

124:1.7 (1367.3) Jesus' second sister, Martha, was born Thursday night, September 13. Three weeks after the coming of Martha, Joseph, who was home for awhile, started the building of an addition to their house, a combined workshop and bedroom. A small workbench was built for Jesus, and for the first time he possessed tools of his own. At odd times for many years he worked at this bench and became highly expert in the making of yokes.

124:1.8 (1367.4) This winter and the next were the coldest in Nazareth for many decades. Jesus had seen snow on the mountains, and several times it had fallen in Nazareth, remaining on the ground only a short time; but not until this winter had he seen ice. The fact that water could be had as a solid, a liquid, and a vapor — he had long pondered over the escaping steam from the boiling pots — caused the lad to think a great deal about the physical world and its constitution; and yet the personality embodied in this growing youth was all this while the actual creator and organizer of all these things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124:1.9 (1367.5) The climate of Nazareth was not severe. January was the coldest month, the temperature averaging around 50° F. During July and August, the hottest months, the temperature would vary from 75° to 90° F. From the mountains to the Jordan and the Dead Sea valley the climate of Palestine ranged from the frigid to the torrid. And so, in a way, the Jews were prepared to live in about any and all of the world's varying climates.

124:1.10 (1367.6) Even during the warmest summer months a cool sea breeze usually blew from the west from 10:00 A.M. until about 10:00 P.M. But every now and then terrific hot winds from the eastern desert would blow across all Palestine. These hot blasts usually came in February and March, near the end of the rainy season. In those days the rain fell in refreshing showers from November to April, but it did not rain steadily. There were only two seasons in Palestine, summer and winter, the dry and rainy seasons. In January the flowers began to bloom, and by the end of April the whole land was one vast flower garden.

124:1.11 (1367.7) In May of this year, on his uncle's farm, Jesus for the first time helped with the harvest of the grain. Before he was thirteen, he had managed to find out something about practically everything that men and women worked

도 터득하게 되었으며,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몇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작업이 없거나 카라반들의 행렬이 드물 때에는,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 엔도르, 나인 등으로 여러 차례 취미 여행 또는 출장 여행을 하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부터 서북쪽으로 3마일 남짓 떨어져 있는, 세포리에 자주 갔으며, 그곳은 기원 전 4년부터 서기 25년까지 갈릴리의 수도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거처였다.

예수는 육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였다.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더욱 잘 납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가르치는 것만큼,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원(始原)적인 깊은 사색가(思索家)였으며, 능숙한 선생이었다. 그는 소위 “구전(口傳)되는 율법”이라는 모든 것을 항상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는 언제나 가족의 실천 관행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도 잘 지냈으나 그들의 느린 정신적 반응 때문에 자주 실망하곤 하였다.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그는 7명의 소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들은 보다 많은 것을 습득한 훌륭한 어른—육체적, 지적, 그리고 종교적으로—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모인 모임이었다. 이러한 소년들에게 예수는 많은 새로운 놀이들과 개선했던 다양한 육체적 오락 방법들을 잘 소개하였다.

제 2 장. 10살 되던 해(서기 4년)

7월의 첫 번째 안식일이었던 7월 5일, 아버지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던 예수는, 자기 일생의 사명의 비상한 본성에 대하여 자아-의식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감정과 관념을 처음으로 표현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들의 중대한 말들을 주의 깊게 들었을 뿐 그것에 대해 거의 대꾸하지 않았다;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자진해서 해주지는 않았다. 그 다음 날 예수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오랫동안 하였다. 마리아도 그 소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으나 그녀 역시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 개인성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사명의 성격에 관하여 자신의 인식 속에서 점점 더 증가되는 이 계시를 그의 부모에게 다시 언급한 것은 거의 2년이 지난 후였다.

그는 8월에 회당에 소속된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질문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점점 더 나사렛 온 동네에 다소간의 소동을 일으켰다. 그의 부모는 격정스럽게 하는 그의 질문들을 그치게 하는데 지쳤으며, 그의 담임선생은 그 소년의 호기심과 통찰력,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망에 대하여 크게 흥미를 갖게 되었다.

at around Nazareth except metal working, and he spent several months in a smith's shop when old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124:1.12 (1368.1) When work and caravan travel were slack, Jesus made many trips with his father on pleasure or business to near-by Cana, Endor, and Nain. Even as a lad he frequently visited Sepphoris, only a little over three miles from Nazareth to the northwest, and from 4 B.C. to about A.D. 25 the capital of Galilee and one of the residences of Herod Antipas.

124:1.13 (1368.2) Jesus continued to grow physically, intellectu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His trips away from home did much to give him a better and more generous understanding of his own family, and by this time even his parents were beginning to learn from him as well as to teach him. Jesus was an original thinker and a skillful teacher, even in his youth. He was in constant collision with the so-called “oral law,” but he always sought to adapt himself to the practices of his family. He got along fairly well with the children of his age, but he often grew discouraged with their slow-acting minds. Before he was ten years old, he had become the leader of a group of seven lads who formed themselves into a society for promoting the acquirements of manhood — physical, intellectual, and religious. Among these boys Jesus succeeded in introducing many new games and various improved methods of physical recreation.

2. THE TENTH YEAR (A.D. 4)

124:2.1 (1368.3) It was the fifth of July, the first Sabbath of the month, when Jesus, while strolling through the countryside with his father, first gave expression to feelings and ideas which indicated that he was becoming self-conscious of the unusual nature of his life mission. Joseph listened attentively to the momentous words of his son but made few comments; he volunteered no information. The next day Jesus had a similar but longer talk with his mother. Mary likewise listened to the pronouncements of the lad, but neither did she volunteer any information. It was almost two years before Jesus again spoke to his parents concerning this increasing revelation within his own consciousness regarding the nature of his personality and the character of his mission on earth.

124:2.2 (1368.4) He entered the advanced school of the synagogue in August. At school he was constantly creating trouble by the questions he persisted in asking. Increasingly he kept all Nazareth in more or less of a hubbub. His parents were loath to forbid his asking these disquieting questions, and his chief teacher was greatly intrigued by the lad's curiosity, insight, and hunger

예수의 놀이 친구들은 그의 행위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친구들과 같았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균이상이었으나 아주 특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였다.

그에게 가장 특이하고 눈에 띄는 특색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나이에 비해 몸집이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가 불공정을 당하였거나 개인적 모독을 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놀이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는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웃 친구 야곱 덕분에, 이 특색으로 인한 곤란을 크게 겪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石工)이었는데, 요셉의 사업상 연관-동료였다. 야곱은 예수를 무척 탄복하였으며, 예수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괴롭히려는 아이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자기 일로 여겼다. 나이가 많은 거친 아이들이 예수가 온순하다는 평판을 믿고, 여러 차례 그를 공격하였지만, 그의 자아-임명한 투사이며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석공의 아들 야곱의 재빠르고 정확한 반격에 그들이 오히려 항상 당하곤 하였다.

예수는 그들의 시절과 세대의 더욱 높은 이상들을 대표하는 나사렛 아이들의 우두머리로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는 공정한 뿐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보이면서도 분별 있는 열정에 가까운 드물지만 납득하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유년기 연관 동료들로부터 실제로 사랑을 받았다.

이 해부터 그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연상(年上)의 사람들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였으며, 그의 깊은 추리력과 예리한 관찰력 때문에 어른들이 매료되어 언제든지 그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기까지, 그의 부모는 그가 선호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같은 나이가거나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같은 해 말경에, 그는 자기 삼촌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두 달 동안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였으며,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그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능숙한 어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육체적인 성장은 계속되었고; 그는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앞서 있고 특권을 누리는 학생이었다; 그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보다 3살 만이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과 집에서 아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는 몇몇 우둔한 아이들의

for knowledge.

124:2.3 (1368.5) Jesus' playmates saw nothing supernatural in his conduct; in most ways he was altogether like themselves. His interest in study was somewhat above the average but not wholly unusual. He did ask more questions at school than others in his class.

124:2.4 (1368.6) Perhaps his most unusual and outstanding trait was his unwillingness to fight for his rights. Since he was such a well-developed lad for his age, it seemed strange to his playfellows that he was disinclined to defend himself even from injustice or when subjected to personal abuse. As it happened, he did not suffer much on account of this trait because of the friendship of Jacob, a neighbor boy, who was one year older. He was the son of the stone mason, a business associate of Joseph. Jacob was a great admirer of Jesus and made it his business to see that no one was permitted to impose upon Jesus because of his aversion to physical combat. Several times older and uncouth youths attacked Jesus, relying upon his reputed docility, but they always suffered swift and certain retribution at the hands of his self-appointed champion and ever-ready defender, Jacob the stone mason's son.

124:2.5 (1369.1) Jesus was the generally accepted leader of the Nazareth lads who stood for the higher ideals of their day and generation. He was really loved by his youthful associates, not only because he was fair, but also because he possessed a rare and understanding sympathy that betokened love and bordered on discreet compassion.

124:2.6 (1369.2) This year he began to show a marked preference for the company of older persons. He delighted in talking over things cultural, educational,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with older minds, and his depth of reasoning and keenness of observation so charmed his adult associates that they were always more than willing to visit with him. Until he became responsible for the support of the home, his parents were constantly seeking to influence him to associate with those of his own age, or more nearly his age, rather than with older and better-informed individuals for whom he evinced such a preference.

124:2.7 (1369.3) Late this year he had a fishing experience of two months with his uncle on the Sea of Galilee, and he was very successful. Before attaining manhood, he had become an expert fisherman.

124:2.8 (1369.4) His physical development continued; he was an advanced and privileged pupil at school; he got along fairly well at home with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having the advantage of being three and one-half years older than the

부모들로부터 건방지다고, 아이답지 않고 겸손한 구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사렛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또래 모임과 놀이를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려는 경향(傾向)을 점점 더 많이 현시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선생이었으며, 놀이를 할 때에도 단순히 그러한 태도를 억제하지 못함을 보였다.

요셉은 산업이나 교역에 비해서 농업이 유리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예수에게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갈릴리는 유대 지방보다 더 아름답고 번영하였으며, 생활비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의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였다. 그곳은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들과 날로 번창하는 산업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었으며,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성읍이 200개가 넘었고, 15,000명이 넘는 성읍도 30개 이상 있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의 어업 현장을 관찰하러 왔을 때, 예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 하였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가까이 있었던 영향으로 목수가 되었고, 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력이 작용하여 새로운 계층을 가르치는 종교적인 선생이 되는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인도되었다.

제 3 장. 11살 되던 해(서기 5년)

이 해에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와 집을 떠나 여러 차례 여행을 하였지만, 그의 삼촌의 농장도 자주 방문하였고, 때로는 막달라로 가서 그 도시 근처에 본거지를 만들어 둔 삼촌과 함께 고기를 잡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끔씩 예수를 특별히 편애(偏愛)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언약의 아이, 운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설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졌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둘 모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신하였다. 아주 미약한 정도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을 때마다, 그 소년은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즉각 거절하였다.

예수는 카라반들을 상대하는 상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여행자와 대화할 함으로써,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매우 기이하게 보이는 국제적 관련사들에 대하여 많은 정보들을 얻었다. 이 해는 그가 무척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로부터 이 소년의 일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책임이 급속도로 배가(倍加)되었던 것이다.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유다가 태어

oldest of the other children. He was well thought of in Nazareth except by the parents of some of the duller children, who often spoke of Jesus as being too pert, as lacking in proper humility and youthful reserve. He manifested a growing tendency to direct the play activities of his youthful associates into more serious and thoughtful channels. He was a born teacher and simply could not refrain from so functioning, even when supposedly engaged in play.

124:2.9 (1369.5) Joseph early began to instruct Jesus in the diverse means of gaining a livelihood, explaining the advantages of agriculture over industry and trade. Galilee was a more beautiful and prosperous district than Judea, and it cost only about one fourth as much to live there as in Jerusalem and Judea. It was a province of agricultural villages and thriving industrial cities, containing more than two hundred towns of over five thousand population and thirty of over fifteen thousand.

124:2.10 (1369.6) When on his first trip with his father to observe the fishing industry on the lake of Galilee, Jesus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o become a fisherman; but close association with his father's vocation later on influenced him to become a carpenter, while still later a combination of influences led him to the final choice of becoming a religious teacher of a new order.

3. THE ELEVENTH YEAR (A.D. 5)

124:3.1 (1369.7) Throughout this year the lad continued to make trips away from home with his father, but he also frequently visited his uncle's farm and occasionally went over to Magdala to engage in fishing with the uncle who made his headquarters near that city.

124:3.2 (1369.8) Joseph and Mary were often tempted to show some special favoritism for Jesus or otherwise to betray their knowledge that he was a child of promise, a son of destiny. But both of his parents were extraordinarily wise and sagacious in all these matters. The few times they did in any manner exhibit any preference for him, even in the slightest degree, the lad was quick to refuse all such special consideration.

124:3.3 (1370.1) Jesus spent considerable time at the caravan supply shop, and by conversing with the traveler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he acquired a store of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affairs that was amazing, considering his age. This was the last year in which he enjoyed much free play and youthful joyousness. From this time on difficulties and responsibilities rapidly multiplied in the life of this youth.

124:3.4 (1370.2) On Wednesday evening, June 24,

났다. 이 일곱 번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생겼다. 마리아는 요셉이 집에 머물러 있었던 몇 주 동안 매우 심한 병을 앓았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과 어머니의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로 매우 바쁘게 지냈다. 이 소년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만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무가 맡겨지는 시기가 되려면 아직도 1년 내지 2년 더 있어야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그가 열 한 살이 되기 직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게 되었다.

매주 하루 저녁은 카잔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히브리 경전에 숙달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 학생의 향상되는 실력에 매우 흥미를 가졌으며;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그를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이 유대인 선생은 자라나는 이 심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박식한 랍비들 밑에서 학업을 계속하라는 자신의 모든 권고에 대해 예수가 왜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5월 중순경, 예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데카폴리스 지방의 주요 그리스 도시이며, 베스쉬안 지역의 고대 히브리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로 사업차 여행을 하였다. 이 여행 중에 요셉은 예수에게 사울 왕과 필리스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예수는 소위 이방인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들의 깨끗한 모습과 잘 정돈된 배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천극장을 보고 매우 놀랐으며, “이방” 하느님들에게 바쳐진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들을 보고 감탄하였다. 요셉은 이 아이가 이것들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칭찬함으로써 예수의 이러한 감정을 바꾸어 보려고 하였다. 예수는 이미 나사렛의 언덕에서 이 그리스 도시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본 적이 종종 있었고 대규모의 공공 사업들과 화려한 건물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항상 대답을 회피하려고 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이방인 도시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요셉은 예수의 질문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 때, 데카폴리스 지방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 대중들 앞에서 서로 육체적인 용맹을 실증하고 연례적으로 경쟁하는 시합이 스키토폴리스의 원형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수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시합을 보여 달라고 졸랐고, 그가 너무 끈질기게 우겼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소년은 그 시합에 몹시 감동되었고, 육체적인 발달과 경기 기술들을 시범으로 실증하는 영에 열광적으로 매료되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이, “이방”의 허영심으로 들떠 있는 이러한 시범경기들을 열광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시합들이 완결된

A.D. 5, Jude was born. Complications attended the birth of this, the seventh child. Mary was so very ill for several weeks that Joseph remained at home. Jesus was very much occupied with errands for his father and with many duties occasioned by his mother's serious illness. Never again did this youth find it possible to return to the childlike attitude of his earlier years. From the time of his mother's illness — just before he was eleven years old — he was compelled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rst-born son and to do all this one or two full years before these burdens should normally have fallen on his shoulders.

124:3.5 (1370.3) The chazan spent one evening each week with Jesus, helping him to master the Hebrew scriptures. He was greatly interested in the progress of his promising pupil; therefore was he willing to assist him in many ways. This Jewish pedagogue exerted a great influence upon this growing mind, but he was never able to comprehend why Jesus was so indifferent to all his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spects of going to Jerusalem to continue his education under the learned rabbis.

124:3.6 (1370.4) About the middle of May the lad accompanied his father on a business trip to Scythopolis, the chief Greek city of the Decapolis, the ancient Hebrew city of Beth-shean. On the way Joseph recounted much of the olden history of King Saul, the Philistines, and the subsequent events of Israel's turbulent history. Jesus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clean appearance and well-ordered arrangement of this so-called heathen city. He marveled at the open-air theater and admired the beautiful marble temple dedicated to the worship of the “heathen” gods. Joseph was much perturbed by the lad's enthusiasm and sought to counteract these favorable impressions by extolling the beauty and grandeur of the Jewish temple at Jerusalem. Jesus had often gazed curiously upon this magnificent Greek city from the hill of Nazareth and had many times inquired about its extensive public works and ornate buildings, but his father had always sought to avoid answering these questions. Now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he beauties of this gentile city, and Joseph could not gracefully ignore Jesus' inquiries.

124:3.7 (1370.5) It so happened that just at this time the annual competitive games and public demonstrations of physical prowess between the Greek cities of the Decapolis were in progress at the Scythopolis amphitheater, and Jesus was insistent that his father take him to see the games, and he was so insistent that Joseph hesitated to deny him. The boy was thrilled with the games and entered most heartily into the spirit of the demonstration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athletic skill. Joseph was inexpressibly shocked to observe his son's enthusiasm as he beheld these

후에, 예수가 그것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건전한 야외 육체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요셉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요셉은 이러한 실천 관행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 예수와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는 그 소년이 설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내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날 밤 여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잊고 있었던 그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사렛에 원형극장을 짓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요셉은 만아들이 이렇게 비유대적인 정서에 젖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의 온순한 성품을 잊은 채 예수의 어깨를 잡고 화난 음성으로,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러한 악한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라.”라고 소리쳤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의 분개로 인하여 개인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소년은 시합이나 다른 운동 경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식으로 지은 원형극장을 보았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생 동안에 건전한 오락에 대한 관념을 자신의 개인적 계획들 속에 도입해 보려고 시도하였으며, 유대 실천 관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의 12명의 사도들을 위한 후일의 정규 활동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11살이던 이 해가 끝날 무렵까지는, 예수가 생기 있고, 잘 성장하고, 적당히 유머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밝은 심성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깊은 묵상과 진지한 깊은 사색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을 향상시키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제 4 장. 12살 되던 해(서기 6년)

이 해는 예수의 일생에서 사건 많은 한 해였다. 그는 학교에서 계속하여 진보를 이루었고, 자연에 대한 공부는 지칠 줄 몰랐으며,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접

exhibitions of “heathen” vaingloriousness. After the games were finished, Joseph received the surprise of his life when he heard Jesus express his approval of them and suggest that it would be good for the young men of Nazareth if they could be thus benefited by wholesome outdoor physical activities. Joseph talked earnestly and long with Jesus concerning the evil nature of such practices, but he well knew that the lad was unconvinced.

124:3.8 (1371.1) The only time Jesus ever saw his father angry with him was that night in their room at the inn when, in the course of their discussions, the boy so far forgot the trends of Jewish thought as to suggest that they go back home and work for the building of an amphitheater at Nazareth. When Joseph heard his first-born son express such un-Jewish sentiments, he forgot his usual calm demeanor and, seizing Jesus by the shoulder, angrily exclaimed, “My son, never again let me hear you give utterance to such an evil thought as long as you live.” Jesus was startled by his father’s display of emotion; he had never before been made to feel the personal sting of his father’s indignation and was astonished and shocked beyond expression. He only replied, “Very well, my father, it shall be so.” And never again did the boy even in the slightest manner allude to the games and other athletic activities of the Greeks as long as his father lived.

124:3.9 (1371.2) Later on, Jesus saw the Greek amphitheater at Jerusalem and learned how hateful such things were from the Jewish point of view. Nevertheless, throughout his life he endeavored to introduce the idea of wholesome recreation into his personal plans and, as far as Jewish practice would permit, into the later program of regular activities for his twelve apostles.

124:3.10 (1371.3) At the end of this eleventh year Jesus was a vigorous, well-developed, moderately humorous, and fairly lighthearted youth, but from this year on he was more and more given to peculiar seasons of profound meditation and serious contemplation. He was much given to thinking about how he was to carry out his obligations to his family and at the same time be obedient to the call of his mission to the world; already he had conceived that his ministry was not to be limited to the betterment of the Jewish people.

4. THE TWELFTH YEAR (A.D. 6)

124:4.1 (1371.4) This was an eventful year in Jesus’ life. He continued to make progress at school and was indefatigable in his study of nature, while increasingly he prosecuted his study of the

점 더 추진하였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가정 안에서 비밀을 지키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전에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자기 동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숨기면서 점점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갔다.

그 한 해 동안, 그는 자신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의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자연적으로 성장한 그의 인간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원적(二元的)인 본성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단일 개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식으로 하여금 바로 그 개인성과 연관된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중적 기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 형제자매들과 더욱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채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하여 항상 연민을 갖고 특별히 배려하였으며, 자신이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는 야고보, 미리암, 그리고 더 어린(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동생인 아모스와 루트와 더없이 친하게 지냈다. 그는 언제나 마르다와 잘 지냈다. 그가 집에서 가졌던 문제는 주로 요셉과 유다의 충돌에서 야기되었는데 특히 유다 때문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간성과 신성을 복합적으로 갖춘, 전례가 없는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임무는, 하나의 괴로운 체험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아버지로서의 자신들의 임무를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크게 신임받아 마땅하다. 예수의 부모들은 자기들의 만아들 속에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아이가 정말로 그리고 참으로 이 지역우주의 사물과 존재들을 창조한 실제적인 창조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필사자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온 우주 창조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었다.

같은 해에, 예수는 음악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집안에서는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예수의 사명에 대한 본질에 관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예민하게 알게 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부모들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매우 숙고하였고, 자기가 깊이 잠든 줄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들의 대화를 종종 들어보기도 하였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관점을 따르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일생을 통해 체험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의 지시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현됨으로써 상처를 입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해가 거

methods whereby men make a living. He began doing regular work in the home carpenter shop and was permitted to manage his own earnings, a very unusual arrangement to obtain in a Jewish family. This year he also learned the wisdom of keeping such matters a secret in the family. He was becoming conscious of the way in which he had caused trouble in the village, and henceforth he became increasingly discreet in concealing everything which might cause him to be regarded as different from his fellows.

124:4.2 (1371.5) Throughout this year he experienced many seasons of uncertainty, if not actual doubt,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His naturally developing human mind did not yet fully grasp the reality of his dual nature. The fact that he had a single personality rendered it difficult for his consciousness to recognize the double origin of those factors which composed the nature associated with that selfsame personality.

124:4.3 (1371.6) From this time on he became more successful in getting along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He was increasingly tactful, always compassionate and considerate of their welfare and happiness, and enjoyed good relations with them up to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To be more explicit: He got along with James, Miriam, and the two younger (as yet unborn) children, Amos and Ruth, most excellently. He always got along with Martha fairly well. What trouble he had at home largely arose out of friction with Joseph and Jude, particularly the latter.

124:4.4 (1372.1) It was a trying experience for Joseph and Mary to undertake the rearing of this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divinity and humanity, and they deserve great credit for so faithfully and successfully discharging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Increasingly Jesus' parents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superhuman resident within this eldest son, but they never even faintly dreamed that this son of promise was indeed and in truth the actual creator of this local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Joseph and Mary lived and died without ever learning that their son Jesus really was the Universe Creator incarnate in mortal flesh.

124:4.5 (1372.2) This year Jesus paid more attention than ever to music, and he continued to teach the home school for his brothers and sisters. It was at about this time that the lad became keenly consciou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ewpoints of Joseph and Mary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He pondered much over his parents' differing opinions, often hearing their discussions when they thought he was sound asleep. More and more he inclined to the view of his father, so that his mother was destined to be hurt by the realization that her son was gradually rejecting her guidance in matters having to do with

습될수록, 그들의 생각의 차이는 더 넓어졌다. 마리아는 예수의 사명의 의의(意義)에 대해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어머니는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 자신의 맹신적인 기대들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요셉은 예수의 사명의 영적 본질에 대해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불운하게도 그는 예수가 이 세상에 증여된 것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였다.

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해에,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예수는 문설주에 못으로 박아 놓은 양피지 문서에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손끝을 대고 다시 그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드나드는 것을 이제로부터 그 언제까지라도 보호해 주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에 예수에게 아무것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수차례에 걸쳐 가르치면서, 그러한 작품들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예수는 그들이 형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을 왜 금지시키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기 아버지에게 문설주의 양피지 문서에게 습관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에도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이러한 항의를 받은 후에 문설주에서 그 양피지 문서를 제거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는 가족 공동 기도와 다른 여러 관례들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들에 대한 실천 관행들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일들은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회당이 나사렛의 유명한 선생 호세와 같은 자유주의적 학풍을 따르는 랍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해와 그 후 2년 동안 예수는 종교적인 실천 관행이나 사회적인 풍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기 부모의 이미 확립된 신앙과 조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자하는 충동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으로부터의 경고가 대립됨으로 인하여 혼란되어 있었다; 그의 최극의 갈등은 그의 어린 마음속에 최우선으로 있던 위대한 두 개의 명령사이에 있었다. 하나는 “진실과 정의(義)에 대한 너의 최고 신념의 명령에 충성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후로는 길러주었으니,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인간의 신념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매 순간마다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기피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충성심과 공정성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에 바탕을 둔 집단적 일체감의 뛰어난 개념 속으로 개인적 신념과 가족에 대

his life career. And, as the years passed, this breach of understanding widened. Less and less did Mar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Jesus' mission, and increasingly was this good mother hurt by the failure of her favorite son to fulfill her fond expectations.

124:4.6 (1372.3) Joseph entertained a growing belief in the spiritual nature of Jesus' mission. And but for other and more important reasons it does seem unfortunate that he could not have lived to see the fulfillment of his concept of Jesus' bestowal on earth.

124:4.7 (1372.4) During his last year at school,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Jesus remonstrated with his father about the Jewish custom of touching the bit of parchment nailed upon the doorpost each time on going into, or coming out of, the house and then kissing the finger that touched the parchment. As a part of this ritual it was customary to say, "The Lord shall preserve our going out and our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even forevermore." Joseph and Mary had repeatedly instructed Jesus as to the reasons for not making images or drawing pictures, explaining that such creations might be used for idolatrous purposes. Though Jesus failed fully to grasp their proscriptions against images and pictures, he possessed a high concept of consistency and therefore pointed out to his father the essentially idolatrous nature of this habitual obeisance to the doorpost parchment. And Joseph removed the parchment after Jesus had thus remonstrated with him.

124:4.8 (1372.5) As time passed, Jesus did much to modify their practice of religious forms, such as the family prayers and other customs. And it was possible to do many such things at Nazareth, for its synagogue was under the influence of a liberal school of rabbis, exemplified by the renowned Nazareth teacher, Jose.

124:4.9 (1372.6) Throughout this and the two following years Jesus suffered great mental distress as the result of his constant effort to adjust his personal views of religious practices and social amenities to the established beliefs of his parents. He was distraught by the conflict between the urge to be loyal to his own convictions and the conscientious admonition of dutiful submission to his parents; his supreme conflict was between two great commands which were uppermost in his youthful mind. The one was: "Be loyal to the dictates of your highest convictions of truth and righteousness." The other wa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for they have given you life and the nurture thereof." However, he never shirked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the necessary daily adjustments between these realms of loyalty to one's personal convictions and duty toward one's family, and he achieved the satisfaction of effecting

한 의무감을 더욱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족스러운 성취를 이루었다.

an increasingly harmonious blending of personal convictions and family obligations into a masterful concept of group solidarity based upon loyalty, fairness, tolerance, and love.

제 5 장. 13살 되던 해(서기 7년)

이 해부터 나사렛의 그 소년은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음성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몸과 마음의 다른 특징들도 곧 어른의 지위에 도달하려는 증거들을 나타나고 있었다.

서기 7년 1월 9일 일요일 밤, 그의 남동생 아모스가 태어났다. 유다는 아직 2살이 안되었다, 여동생 루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는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로 이루어진 꽤 큰 가족을 가져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월 중순경에,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깨우침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를 위하여 사명을 수행하도록 운명되었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확신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계획들과 함께 중대한 결정들이, 겉으로 볼 때 나사렛에 사는 보통의 유대인 소년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한 이 목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네바돈 전체의 모든 지능 생명체들은 넋을 잃고 경탄하면서 지켜보았다.

서기 7년 3월 20일 그 주일의 첫날, 예수는 나사렛의 회당과 관계되어 있는 그 지역의 학교에서의 훈련 과정으로부터 졸업하였다. 야심을 가진 모든 유대인 가정의 일생에 있어서 이 날은 가슴 벅찬 날이었으며, 그 날은 바로 말자들이 “계명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의 대속함을 받은 첫 아들, “지고자의 아이”로 그리고 모든 지상의 주님의 하인으로 선포되는 날이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요셉은 이 기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건물을 짓고 있던 세포리로부터 돌아왔다. 예수를 가르친 선생은 주의 깊고 부지런한 자기 제자가 어떤 눈에 떨만한 출세, 어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예수의 순응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였던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이 소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명한 히브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토론되는 것을 때때로 들으면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점점 더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 발생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당장에 자기 자신

5. HIS THIRTEENTH YEAR (A.D. 7)

124:5.1 (1373.1) In this year the lad of Nazareth passed from boyhood to the beginning of young manhood; his voice began to change, and other features of mind and body gave evidence of the oncoming status of manhood.

124:5.2 (1373.2) On Sunday night, January 9, A.D. 7, his baby brother, Amos, was born. Jude was not yet two years of age, and the baby sister, Ruth, was yet to come; so it may be seen that Jesus had a sizable family of small children left to his watchcare when his father met his accidental death the following year.

124:5.3 (1373.3) It was about the middle of February that Jesus became humanly assured that he was destined to perform a mission on earth for the enlightenment of man and the revelation of God. Momentous decisions, coupled with far-reaching plans, were formulating in the mind of this youth, who was, to outward appearances, an average Jewish lad of Nazareth. The intelligent life of all Nebadon looked on with fascination and amazement as all this began to unfold in the thinking and acting of the now adolescent carpenter's son.

124:5.4 (1373.4)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ch 20, A.D. 7, Jesus graduated from the course of training in the local school connected with the Nazareth synagogue. This was a great day in the life of any ambitious Jewish family, the day when the first-born son was pronounced a “son of the commandment” and the ransomed first-born of the Lord God of Israel, a “child of the Most High” and serv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124:5.5 (1373.5) Friday of the week before, Joseph had come over from Sepphoris, where he was in charge of the work on a new public building, to be present on this glad occasion. Jesus' teacher confidently believed that his alert and diligent pupil was destined to some outstanding career, some distinguished mission. The elders, notwithstanding all their trouble with Jesus' nonconformist tendencies, were very proud of the lad and had already begun laying plans which would enable him to go to Jerusalem to continue his education in the renowned Hebrew academies.

124:5.6 (1373.6) As Jesus heard these plans discussed from time to time, he became increasingly sure that he would never go to Jerusalem to study with the rabbis. But he little dreamed of the tragedy, so soon to occur, which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5명의 남동생들과 3명의 여동생들로 구성된 대가족을 부양하고 이끌어 가는 책임을 자기가 맡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계획은 포기되었을 것이 확실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인 요셉에게 부과되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긴 체험을 하였으며, 그는 자신이 나중에 스스로 부과한 기준 즉: 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치고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당하게 된 이 가족—자기 가족—에게 현명하고 참을성 있으며 납득함이 있고 효력적인 선생인 동시에 맏아들이 되기에 적합하였다.

would insure the abandonment of all such plans by causing him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upport and direction of a large family, presently to consist of five brothers and three sisters as well as his mother and himself. Jesus had a larger and longer experience rearing this family than was accorded to Joseph, his father; and he did measure up to the standard which he subsequently set for himself: to become a wise, patient, understanding, and effective teacher and eldest brother to this family — his family — so suddenly sorrow-stricken and so unexpectedly bereaved.

제 6 장.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제 막 청년기의 문턱에 이르렀고 회당 학교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예수는, 자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분별화되었다. 이 해의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에 있었다. 여행에 동행할 많은 사람들(103)이 4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하였지만, 예즈릴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길을 바꾸어 길보아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의 우물과 베델을 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들과 함께 요단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무척 두려웠던 아켈라우스가 이미 왕에서 물러났고,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헤롯 1세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났으며, 그 당시의 일과 눈에 띄지 않는 이 나사렛의 아이를 연결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즈릴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 그들은 여행을 계속한 후 곧 왼편에 있는 고대의 마을 슈넬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예수는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의 이야기와, 엘리사가 이곳에서 행하였던 놀라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다. 예즈릴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착취자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보아산을 지나갈 때에는 그들은 이 산의 언덕에서 죽은 사울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다윗 왕과 기타 이 역사적 장소와 관계적·연합된 이야기들을 하였다.

길보아산 밑을 돌아가면서 그 순례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그리스 도시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이 이방인 도시의 대리석 건축물들을 바라보았고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자신

6. THE JOURNEY TO JERUSALEM

124:6.1 (1374.1) Jesus, having now reached the threshold of young manhood and having been formally graduated from the synagogue schools, was qualified to proceed to Jerusalem with his parents to participate with them in the celebration of his first Passover. The Passover feast of this year fell on Saturday, April 9, A.D. 7. A considerable company (103) made ready to depart from Nazareth early Monday morning, April 4, for Jerusalem. They journeyed south toward Samaria, but on reaching Jezreel, they turned east, going around Mount Gilboa into the Jordan valley in order to avoid passing through Samaria. Joseph and his family would have enjoyed going down through Samaria by way of Jacob's well and Bethel, but since the Jews disliked to deal with the Samaritans, they decided to go with their neighbors by way of the Jordan valley.

124:6.2 (1374.2) The much-dreaded Archelaus had been deposed, and they had little to fear in taking Jesus to Jerusalem. Twelve years had passed since the first Herod had sought to destroy the babe of Bethlehem, and no one would now think of associating that affair with this obscure lad of Nazareth.

124:6.3 (1374.3) Before reaching the Jezreel junction, and as they journeyed on, very soon, on the left, they passed the ancient village of Shunem, and Jesus heard again about the most beautiful maiden of all Israel who once lived there and also about the wonderful works Elisha performed there. In passing by Jezreel, Jesus' parents recounted the doings of Ahab and Jezebel and the exploits of Jehu. In passing around Mount Gilboa, they talked much about Saul, who took his life on the slopes of this mountain, King David, and the associations of this historic spot.

124:6.4 (1374.4) As they rounded the base of Gilboa, the pilgrims could see the Greek city of Scythopolis on the right. They gazed upon the marble structures from a distance but went not near the gentile city lest they so defile themselves

들을 더럽히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 축제의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 둘 모두 스키토폴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에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언쟁에 대해 그들이 전혀 이 에피소드를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길은 이제 골장 열대성 기후의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으며 예수는 사해로 흘러 내려가면서 반짝거리고 잔잔한 시냇물과 함께, 굽어져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요단 지역을 곧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열대 기후의 이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는 겂옷을 벗었고, 북쪽으로 멀리 서있는 눈 덮인 장엄한 모습의 헤르몬 산이 역사적인 이 계곡을 위엄 있게 내려다보아 있는 가운데, 만발한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협죽도(夾竹桃) 나무들과 곡식이 맺힌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즐거워하였다. 스키토폴리스 반대편으로부터 세 시간 남짓 여행을 한 후, 그들은 넘쳐흐르는 한 샘에 도착하였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여행을 시작한지 둘째 날, 그들은 압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지나갔고, 강이 있는 이 계곡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미디안-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기드온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둘째 날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요단강이 보이는 가장 높은 사르타바산 아래 부근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이 산의 정상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고 헤롯이 그의 아내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가두었던 곳이고 그가 목 졸라 죽인 두 아들이 매장된 곳이었다.

셋째 날,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개의 마을을 지나갔으며, 그곳들의 우월한 고안건축물들과 그곳들의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될 무렵에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1마일 반을 걸어가서 고대의 여리고 지역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라는 이름을 따온 여호수아가 유명한 업적을 이룩한 장소였다.

여행을 떠난 지 넷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어지는 순례자들의 행렬로 길이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꼭대기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산들이 있는 너머로 요단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잔잔한 사해의 물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반쯤 왔을 때, 예수는 올리브 산(그의 후반부 일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될 지역)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요셉은 그에게 바로 그 산마루 너머에 거룩한 성(城)이 있다고 알려 주었고,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성과 집을 곧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기대감 때문에 그 소년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고 있었다.

올리브 산의 동쪽 비탈에 있는 베다니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하였

that they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forthcoming solemn and sacred ceremonies of the Passover at Jerusalem. Mary could not understand why neither Joseph nor Jesus would speak of Scythopolis. She did not know about their controversy of the previous year as they had never revealed this episode to her.

124:6.5 (1374.5) The road now led immediately down into the tropical Jordan valley, and soon Jesus was to have exposed to his wondering gaze the crooked and ever-winding Jordan with its glistening and rippling waters as it flowed down toward the Dead Sea. They laid aside their outer garments as they journeyed south in this tropical valley, enjoying the luxurious fields of grain and the beautiful oleanders laden with their pink blossoms, while massive snow-capped Mount Hermon stood far to the north, in majesty looking down on the historic valley. A little over three hours' travel from opposite Scythopolis they came upon a bubbling spring, and here they camped for the night, out under the starlit heavens.

124:6.6 (1374.6) On their second day's journey they passed by where the Jabbok, from the east, flows into the Jordan, and looking east up this river valley, they recounted the days of Gideon, when the Midianites poured into this region to overrun the land. Toward the end of the second day's journey they camped near the base of the highest mountain overlooking the Jordan valley, Mount Sartaba, whose summit was occupied by the Alexandrian fortress where Herod had imprisoned one of his wives and buried his two strangled sons.

124:6.7 (1375.1) The third day they passed by two villages which had been recently built by Herod and noted their superior architecture and their beautiful palm gardens. By nightfall they reached Jericho, where they remained until the morrow. That evening Joseph, Mary, and Jesus walked a mile and a half to the site of the ancient Jericho, where Joshua, for whom Jesus was named, had performed his renowned exploits,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124:6.8 (1375.2) By the fourth and last day's journey the road was a continuous procession of pilgrims. They now began to climb the hills leading up to Jerusalem. As they neared the top, they could look across the Jordan to the mountains beyond and south over the sluggish waters of the Dead Sea. About halfway up to Jerusalem, Jesus gained his first view of the Mount of Olives (the region to be so much a part of his subsequent life), and Joseph pointed out to him that the Holy City lay just beyond this ridge, and the lad's heart beat fast with joyous anticipation of soon beholding the city and house of his heavenly Father.

124:6.9 (1375.3) On the eastern slopes of Olivet they paused for rest in the borders of a little village

다. 호의적인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사명활동하기 위하여 몰려 나왔으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세 아이—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의 가족을 쉬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였고, 여기에서 이 두 가족 간에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 그 후, 예수는 자신의 사건 많은 일생 동안에, 이 집에 여러 차례 머물렀다.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잠시 후 올리브 산의 경계선에 도착하였고, 예수는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과 거만하게 서 있는 저택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웅장한 성전을 보았다. 예수는 그의 일생 동안에, 4월이었던 이 날 오후에 올리브 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토록 완벽하게 그를 매혹시킨, 그러한 순전히 인간의 감격을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후에 예수는 같은 지점에 서서, 또 하나의 예언자, 하늘에서 보낸 선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그 선생을 거부하려는 이 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되었다. 도시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전을 지나갔으며, 예수는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름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유월절 주간에 머물기로 이미 약정된 곳에 도착하였으며, 이 큰 집은 마리아의 부유한 친족집이었고, 사가리아를 통하여 요한과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은 예비일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모든 예루살렘이 유월절 준비로 떠들썩하는 동안, 요셉은 틈을 내어 예수를 데리고, 2년 후에 예수가 요구되는 나이인 15세가 되면, 그의 교육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를 위해 이미 주선이 되어 있었던 학원을 방문하였다. 요셉은, 주의 깊게 마련된 이들 모든 계획에 대하여, 예수가 전혀 흥미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면서 참으로 어리둥절했다.

예수는 성전과 모든 연관된 봉사들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인하여 심오하게 감명을 받았다. 4살이 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는 자신만의 명상에 너무나 몰두되어서, 많은 질문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왜 하늘 아버지가 것처럼 많은 죄 없고 어떤 도움도 없는 동물들을 도살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하여, (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난처하게 만드는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대답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깊이-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리하게-추론하는 자기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잘 알았다.

called Bethany. The hospitable villagers poured forth to minister to the pilgrims, and it happened that Joseph and his family had stopped near the house of one Simon, who had three children about the same age as Jesus — Mary, Martha, and Lazarus. They invited the Nazareth family in for refreshment, and a lifelong friendship sprang up between the two families. Many times afterward, in his eventful life, Jesus stopped in this home.

^{124:6.10 (1375.4)} They pressed on, soon standing on the brink of Olivet, and Jesus saw for the first time (in his memory) the Holy City, the pretentious palaces, and the inspiring temple of his Father. At no time in his life did Jesus ever experience such a purely human thrill as that which at this time so completely enthralled him as he stood there on this April afternoon on the Mount of Olives, drinking in his first view of Jerusalem. And in after years, on this same spot he stood and wept over the city which was about to reject another prophet, the last and the greatest of her heavenly teachers.

^{124:6.11 (1375.5)} But they hurried on to Jerusalem. It was now Thursday afternoon. On reaching the city, they journeyed past the temple, and never had Jesus beheld such throngs of human beings. He meditated deeply on how these Jews had assembled here from the uttermost parts of the known world.

^{124:6.12 (1375.6)} Soon they reached the place prearranged for their accommodation during the Passover week, the large home of a well-to-do relative of Mary's, one who knew something of the early history of both John and Jesus, through Zacharias. The following day, the day of preparation, they made ready for the appropriat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Sabbath.

^{124:6.13 (1375.7)} While all Jerusalem was astir in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Joseph found time to take his son around to visit the academy where it had been arranged for him to resume his education two years later, as soon as he reached the required age of fifteen. Joseph was truly puzzled when he observed how little interest Jesus evinced in all these carefully laid plans.

^{124:6.14 (1375.8)} Jesus was profoundly impressed by the temple and all the associated services and other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since he was four years old, he was too much preoccupied with his own meditations to ask many questions. He did, however, ask his father several embarrassing questions (as he had on previous occasions) as to why the heavenly Father required the slaughter of so many innocent and helpless animals. And his father well knew from the expression on the lad's face that his answers and attempts at explanation were unsatisfactory to his deep-thinking and keen-reasoning son.

유월절 안식일 전 날에, 영적 광채의 홍수와 같은 물결이 예수의 필사자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리고 그의 인간 가슴을 옛적부터 내려온 유월절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있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과 도덕적으로 무지한 대중들에 대한, 애정 깊은 동정심으로 넘쳐 흐르도록 채웠다. 이 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보낸 가장 비상한 날들 중의 하나였다; 그 날 밤, 그의 땅에서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에 의해서 임명받고, 구원자별에서 배정 받은 메신저가 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나사렛의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이 그의 나이 어린 어깨에 내려지기도 전에, 아직 정확하게 열세 살이 채 안 된 이 소년에게, 우주의 책임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상기시키려고, 천상의 메신저가 도착한 것이다. 이것은, 아들의 중역을 유란시아 위에서 완성함으로써 그리고 “인간적이고-신성한 그의 어깨 위에 우주의 정부”를 되돌리는, 여러 사건으로 이루어진 긴 하나의 연속물에서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나사렛의 소년이 네바돈의 창조자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여 바로 이 창조자 아들의 영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이 인류의 혼들과 연관되고 있는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의 인간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가 그의 육신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지만, 영으로는 그의 어깨 위에 한 우주의 책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사렛 소년에서의 생애는 끝나고,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간 그 젊은이—점점 더 자아-의식적 신성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 이제 그는 그의 부모의 욕망,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의 날과 시대에서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확대되고 있는 그의 일생의 목적과 집대성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세상 생애에 대한 깊은 사색을 시작하였다.

124:6.15 (1376.1) On the day before the Passover Sabbath, flood tides of spiritual illumination swept through the mortal mind of Jesus and filled his human heart to overflowing with affectionate pity for the spiritually blind and morally ignorant multitudes assembled for the celebration of the ancient Passover commemoration. This wa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days that the Son of God spent in the flesh; and during the night, for the first time in his earth career, there appeared to him an assigned messenger from Salvington, commissioned by Immanuel, who said: “The hour has come. It is time that you began to be about your Father’s business.”

124:6.16 (1376.2) And so, even ere the heavy responsibilities of the Nazareth family descended upon his youthful shoulders, there now arrived the celestial messenger to remind this lad, not quite thirteen years of age, that the hour had come to begin the resump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a universe. This was the first act of a long succession of events which finally culminated in the completion of the Son’s bestowal on Urantia and the replacing of “the government of a universe on his human-divine shoulders.”

124:6.17 (1376.3) As time passed,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became, to all of us, more and more unfathomable. We could hardly comprehend that this lad of Nazareth was the creator of all Nebadon. Neither do we nowadays understand how the spirit of this same Creator Son and the spirit of his Paradise Father are associated with the souls of mankind. With the passing of time, we could see that his human mind was increasingly discerning that, while he lived his life in the flesh, in spirit on his shoulders rested the responsibility of a universe.

124:6.18 (1376.4) Thus ends the career of the Nazareth lad, and begins the narrative of that adolescent youth — the increasingly self-conscious divine human — who now begins the contemplation of his world career as he strives to integrate his expanding life purpose with the desires of his parents and his obligations to his family and the society of his day and age.

제 125 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 124

유랜시아 책

12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5 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색션

소개

제 1 장. 성전을 구경하는 예수

제 2 장. 예수와 유월절

제 3 장.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제 4 장. 성전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

제 5 장. 성전에서의 셋째 날

제 6 장. 성전에서의 넷째 날

PAPER 125

JESUS AT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Views the Temple

2. Jesus and the Passover

3. Departure of Joseph and Mary

4. First and Second Days in the Temple

5. The Third Day in the Temple

6. The Fourth Day in the Temple

소개

예수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어떤 경우도, 이 예루살렘 첫 방문만큼 그를 사로잡고 감동스럽게 한 것은 없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의 토론에 참여 할 수 있었던 체험 때문에 매우 흥분되어 있었으며, 이 기억은 그 이후 오랫동안 후반기 소년 시절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큰 사건으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었다. 이 때 그는 처음으로 며칠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어떠한 제재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드는 유쾌한 체험을 하였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유월절 이후 1주일 동안 모든 의무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자유로운 생활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이다. 그 후로, 짧게나마 그가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 이와 비슷한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실질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동행하기로 결심하자, 여러 명의 다른 나사렛 여인들도 함께 따라 나섰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유월절에 올라갔던 무리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례로 볼 때 여인들의 비율이 이번 유월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INTRODUCTION

^{125:0.1 (1377.1)} NO INCIDENT in all Jesus' eventful earth career was more engaging, more humanly thrilling, than this, his first remembered visit to Jerusalem. He was especially stimulated by the experience of attending the temple discussions by himself, and it long stood out in his memory as the great event of his later childhood and early youth. This was his first opportunity to enjoy a few days of independent living, the exhilaration of going and coming without restraint and restrictions. This brief period of undirected living, during the week following the Passover, was the first complete freedom from responsibility he had ever enjoyed. And it was many years subsequent to this before he again had a like period of freedom from all sense of responsibility, even for a short time.

^{125:0.2 (1377.2)} Women seldom went to the Passover feast at Jerusalem; they were not required to be present. Jesus, however, virtually refused to go unless his mother would accompany them. And when his mother decided to go, many other Nazareth women were led to make the journey, so that the Passover company contained the largest number of women, in proportion to men, ever to go up to the Passover from Nazareth. Ever and anon, on the way to Jerusalem, they chanted the one

도중에 그들은 때때로 시편 130편을 노래하며 갔다.

그들이 나사렛을 떠날 때부터 올리브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는 굉장한 기대로 줄곧 긴장되는 체험을 하였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 동안 내내, 그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존경이 담긴 가슴으로 들어 왔었는데; 이제는 곧 그것들을 실제 안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올리브 산으로부터 그리고 성전 밖으로부터 그것을 점점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은 예수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 그러나 신성시되는 입구를 통하여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에게는 커다란 혐오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자기 부모와 함께 성전의 경내를 지나간 예수는 혼자 떨어져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헌납될 새로운 율법의 아들들의 집단과 합류하였다. 그는 성전에 들어온 군중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약간 실망을 하였지만, 그 날 그가 받은 첫 번째 큰 충격은 어머니가 일행을 떠나 여인들의 처소로 갔을 때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헌납 예식에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생각에 떠오른 적이 없었으며, 게다가 어머니가 그러한 불공평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몹시 화가 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몇 마디의 불만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으며, 1주일 후에 행사가 끝났을 때 서기관들과 선생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는 헌납 예식들의 과정을 잘 건디어 냈지만, 그것들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특성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의 예식의 특징인 개인적 관계가 몹시 생각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뜰들과 방들 그리고 복도들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다. 성전의 경내는 한번에 20만 명 정도의 경배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이 건물들의 광대함—그가 전에 보았던 모든 건물과 비교해 볼 때—은 그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지만, 그는 성전의 예식들과 거기에 연관된 경배의 영적 의의(意義)에 대해 깊은 사색하는 일에 더욱 열중하였다.

성전의 의식들 대부분이 그의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감각에 매우 감동적인 인상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가 날카롭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해 그의 부모가 제시하고자 하였던, 이러한 의식들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에 그는 늘 실망하였다. 예수는 진노의 하느님 또는 전능자의 노여움에 대한 믿음이 내포된 이러한 경배와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설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성전 방문이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는 중에, 예수의 아버지가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완곡하게 타일렀을 때, 예수는 갑자기 자기 부모들에게 돌아서서 호소하는 듯이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그럴 수는

hundred and thirtieth Psalm.

125:0.3 (1377.3) From the time they left Nazareth until they reached the summit of the Mount of Olives, Jesus experienced one long stress of expectant anticipation. All through a joyful childhood he had reverently heard of Jerusalem and its temple; now he was soon to behold them in reality. From the Mount of Olives and from the outside, on closer inspection, the temple had been all and more than Jesus had expected; but when he once entered its sacred portals, the great disillusionment began.

125:0.4 (1377.4) In company with his parents Jesus passed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on his way to join that group of new sons of the law who were about to be consecrated as citizens of Israel. He was a little disappointed by the general demeanor of the temple throngs, but the first great shock of the day came when his mother took leave of them on her way to the women's gallery. It had never occurred to Jesus that his mother was not to accompany him to the consecration ceremonies, and he was thoroughly indignant that she was made to suffer from such unjust discrimination. While he strongly resented this, aside from a few remarks of protest to his father, he said nothing. But he thought, and thought deeply, as his questions to the scribes and teachers a week later disclosed.

125:0.5 (1377.5) He passed through the consecration rituals but was disappointed by their perfunctory and routine natures. He missed that personal interest which characterized the ceremonies of the synagogue at Nazareth. He then returned to greet his mother and prepared to accompany his father on his first trip about the temple and its various courts, galleries, and corridors. The temple precincts could accommodate over two hundred thousand worshipers at one time, and while the vastness of these buildings — in comparison with any he had ever seen — greatly impressed his mind, he was more intrigued by the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e temple ceremonies and their associated worship.

125:0.6 (1378.1) Though many of the temple rituals very touchingly impressed his sense of the beautiful and the symbolic, he was always disappointed by the explanation of the real meanings of these ceremonies which his parents would offer in answer to his many searching inquiries. Jesus simply would not accept explanations of worship and religious devotion which involved belief in the wrath of God or the anger of the Almighty. In further discussion of these ques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emple visit, when his father became mildly insistent that he acknowledge acceptance of the orthodox Jewish beliefs, Jesus turned suddenly upon his

없습니다.—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다 어리석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에게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신성한 것에 대한 인간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선하시며 자비가 흘러넘치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만아들의 이와 같은 이 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관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다시 시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제 1 장. 성전을 구경하는 예수

예수는 성전에 있는 여러 뜰을 하나씩 둘러볼 때마다, 자신이 목격한 불경스러움의 영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진저리가 났다. 그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군중들의 행위가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의 그들의 현존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이방인들의 뜰로 안내하였을 때, 그는 서로 제사용 동물과 기타 일상의 상품들의 배반되어 현존하는 그곳이, 시끄러운 속어, 큰 소리의 떠들고 욕하는 소리, 그리고 양들의 울음소리와 환전상들과 판매상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의 허튼소리들이 난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에, 그의 어린 일생에서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에 세포리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본 적이 있는 화장을 한 여인들과 흡사한, 천박한 매춘부들이 성전 경내를 활보하고 있는 광경으로 인하여 격분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타당성에 대한 감각이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은 젊은 이로서의 그의 분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예수는 성전의 정서와 예배봉사에는 감탄하였지만, 무의미하게 경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는 영적으로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 앞의 돌난간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의 뜰로 내려갔으며, 그곳에는 제단이 있었고, 동물들을 죽이는 장면과 제사를 집행한 도살자 제사장들이 청동으로 만든 그릇 앞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로 얼룩진 도로와 제사장의 피비린내 나는 손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신음소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 소년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흉측한 광경은 이 나사렛 소년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

parents and, looking appealingly into the eyes of his father, said: “My father, it cannot be true — the Father in heaven cannot so regard his erring children on earth. The heavenly Father cannot love his children less than you love me. And I well know, no matter what unwise thing I might do, you would never pour out wrath upon me nor vent anger against me. If you, my earthly father, possess such human reflections of the Divine, how much more must the heavenly Father be filled with goodness and overflowing with mercy. I refuse to believe that my Father in heaven loves me less than my father on earth.”

125:0.7 (1378.2) When Joseph and Mary heard these words of their first-born son, they held their peace. And never again did they seek to change his mind about the love of God and the mercifulness of the Father in heaven.

1. JESUS VIEWS THE TEMPLE

125:1.1 (1378.3) Everywhere Jesus went throughout the temple courts, he was shocked and sickened by the spirit of irreverence which he observed. He deemed the conduct of the temple throngs to be inconsistent with their presence in “his Father’s house.” But he received the shock of his young life when his father escorted him into the court of the gentiles with its noisy jargon, loud talking and cursing, mingled indiscriminately with the bleating of sheep and the babble of noises which betrayed the presence of the money-changers and the vendors of sacrificial animals and sundry other commercial commodities.

125:1.2 (1378.4) But most of all was his sense of propriety outraged by the sight of the frivolous courtesans parading about within this precinct of the temple, just such painted women as he had so recently seen when on a visit to Sepphoris. This profanation of the temple fully aroused all his youthful indignation, and he did not hesitate to express himself freely to Joseph.

125:1.3 (1378.5) Jesus admired the sentiment and service of the temple, but he was shocked by the spiritual ugliness which he beheld on the faces of so many of the unthinking worshippers.

125:1.4 (1378.6) They now passed down to the priests’ court beneath the rock ledge in front of the temple, where the altar stood, to observe the killing of the droves of animals and the washing away of the blood from the hands of the officiating slaughter priests at the bronze fountain. The bloodstained pavement, the gory hands of the priests, and the sounds of the dying animals were more than this nature-loving lad could stand. The terrible sight sickened this boy of Nazareth; he clutched his father’s arm and begged to be taken away. They walked back through the court of the gentiles, and

서 들려오는 조잡한 웃음소리나 천박한 농담이 방금 전에 보았던 광경으로부터 기분을 전환시켜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이 성전의 의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진저리를 쳤었는지를 보았으므로, 그는 지혜를 짜내서 예수를 고린도식 청동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으로 안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첫 번째 성전 방문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성전 위쪽으로 올라갔으며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이 살았던 웅장한 모습의 아스모니아 궁전과 로마 경비병들의 탑을 보면서 한 시간 가량 걸었다. 산책을 하는 동안 요셉은 예수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매일 성전에서 치르는 희생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다는 것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 년에 세 번 즉: 유월절, 오순절(유월절 7주 후), 그리고 10월의 천막축제 축제의 경우에만 성전 경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축제들은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개의 축제들, 봉헌식과 부림 축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하였다.

제 2 장. 예수와 유월절

나사렛에서 온 다섯 가정들은, 축제를 위한 유월절 어린양을 이미 구입해 놓았던, 베다니에 사는 시몬 가족의 손님으로 또는 친구로 초대되어 유월절을 그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가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그토록 많은 어린양들의 살생이었다. 원래는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유월절을 지낼 예정이었으나, 예수는 그들이 베다니로의 초대에 응하도록 부모를 설득하였다.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 함께 모였으며,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었다. 이번에 새롭게 계명의 아들이 된 예수는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답변을 잘하였으나, 어리기는 하지만 사려 깊은 그의 마음속에 아주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하여 느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부모를 좀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7일간의 유월절 축제의식이 시작되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양을 죽이지 않고도 유월절을 축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의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희생물을 제공하는 장면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고, 해가 갈수록, 언젠가는 피 흘림이 없는 유월절 축하 의식을 만들겠

even the coarse laughter and profane jesting which he there heard were a relief from the sights he had just beheld.

125:1.5 (1379.1) Joseph saw how his son had sickened at the sight of the temple rites and wisely led him around to view the “gate beautiful,” the artistic gate made of Corinthian bronze. But Jesus had had enough for his first visit at the temple. They returned to the upper court for Mary and walked about in the open air and away from the crowds for an hour, viewing the Asmonean palace, the stately home of Herod, and the tower of the Roman guards. During this stroll Joseph explained to Jesus that only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were permitted to witness the daily sacrifices in the temple, and that the dwellers in Galilee came up only three times a year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worship: at the Passover, at the feast of Pentecost (seven weeks after Passover), and at the feast of tabernacles in October. These feasts were established by Moses. They then discussed the two later established feasts of the dedication and of Purim. Afterward they went to their lodgings and made ready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2. JESUS AND THE PASSOVER

125:2.1 (1379.2) Five Nazareth families were guests of, or associates with, the family of Simon of Bethany in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Simon having purchased the paschal lamb for the company. It was the slaughter of these lambs in such enormous numbers that had so affected Jesus on his temple visit. It had been the plan to eat the Passover with Mary's relatives, but Jesus persuaded his parents to accept the invitation to go to Bethany.

125:2.2 (1379.3) That night they assembled for the Passover rites, eating the roasted flesh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Jesus, being a new son of the covenant, was asked to recount the origin of the Passover, and this he well did, but he somewhat disconcerted his parents by the inclusion of numerous remarks mildly reflecting the impressions made on his youthful but thoughtful mind by the things which he had so recently seen and hear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even-day ceremonies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125:2.3 (1379.4) Even at this early date, though he said nothing about such matters to his parents, Jesus had begun to turn over in his mind the propriety of celebrating the Passover without the slaughtered lamb. He felt assured in his own mind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pleased with this spectacle of sacrificial offerings, and as the years passed, he became increasingly determined

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예수는 그 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살육과 고통에 대한 불쾌한 꿈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다. 전반적인 유대인의 의식 체제에 대한 유대 신학의 모순과 어리석음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산란해지고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잠을 잘 못했다. 그들은 방금 끝난 그 날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그 소년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고도 고집스러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완벽하게 낭패스러운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그 날 밤 초반기에 마리아는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었지만, 요셉은 마찬가지로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예수는 부모가 용이 있게 자기를 격려해 주었더라면, 기꺼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 둘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예수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예수는 그 다음 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배봉사들에서는 좀 더 나은 인상을 받았고, 전 날에 느꼈던 불쾌한 기억은 많이 완화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젊은 나사로가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구경시켜 주었다.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는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가르치고 질문을 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성소를 몇 차례 방문하여 베일로 격리된 그 뒤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하며 바라본 것 외에는, 가르치는 이 토론들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유월절 주간 동안 내내 예수는 새로 임명된 계명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는 전체적인 사회와 구별시키는 울타리 밖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아직은 어린 나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요동치는 많은 의문점들을 질문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그는 적어도 유월절의 축제가 끝나고 그래서 새롭게 헌납된 그 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체제가 풀릴 때까지는 그렇게 하였다.

유월절 주간의 수요일에, 예수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와 함께 그 날 밤을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날 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신성한 것에 대해 논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날 밤 이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진짜 형제처럼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주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나사로를 자주 만나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는 바깥 마당에서 행해지는 여러 대중을 위한 대화에는 참여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성전 토론은 먼발치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사로도 예수와 같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소년들은 그들이 충분히 13세가 되기 전에는 계명의 아들들로서의 임명식에 거의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someday to establish the celebration of a bloodless Passover.

125:2.4 (1379.5) Jesus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His rest was greatly disturbed by revolting dreams of slaughter and suffering. His mind was distraught and his heart torn by the inconsistencies and absurdities of the theology of the whole Jewish ceremonial system. His parents likewise slept little. They were greatly disconcerted by the events of the day just ended. They were completely upset in their own hearts by the lad's, to them, strange and determined attitude. Mary became nervously agitated during the fore part of the night, but Joseph remained calm, though he was equally puzzled. Both of them feared to talk frankly with the lad about these problems, though Jesus would gladly have talked with his parents if they had dared to encourage him.

125:2.5 (1379.6) The next day's services at the temple were more acceptable to Jesus and did much to relieve the unpleasant memories of the previous day. The following morning young Lazarus took Jesus in hand, and they began a systematic exploration of Jerusalem and its environs. Before the day was over, Jesus discovered the various places about the temple where teaching and question conferences were in progress; and aside from a few visits to the holy of holies to gaze in wonder as to what really was behind the veil of separation, he spent most of his time about the temple at these teaching conferences.

125:2.6 (1380.1) Throughout the Passover week, Jesus kept his place among the new sons of the commandment, and this meant that he must seat himself outside the rail which segregated all persons who were not full citizens of Israel. Being thus made conscious of his youth, he refrained from asking the many questions which surged back and forth in his mind; at least he refrained until the Passover celebration had ended and these restrictions on the newly consecrated youths were lifted.

125:2.7 (1380.2) On Wednesday of the Passover week, Jesus was permitted to go home with Lazarus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This evening, Lazarus, Martha, and Mary heard Jesus discuss things temporal and eternal, human and divine, and from that night on they all three loved him as if he had been their own brother.

125:2.8 (1380.3) By the end of the week, Jesus saw less of Lazarus since he was not eligible for admission to even the outer circle of the temple discussions, though he attended some of the public talks delivered in the outer courts. Lazarus was the same age as Jesus, but in Jerusalem youths were seldom admitted to the consecration of sons of the law until they were a full thirteen years of age.

유월절 주간 동안, 예수 부모는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자 따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계속하여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그 전에는 본적이 없었으며, 자신이 겪고 있는 체험들로 인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되어 있고 영적으로 불안하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당황하였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들은 다만 유월절 주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으며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빨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였다.

날이 갈수록, 예수는 자신의 문제들에 관하여 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주말이 왔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지만; 나사렛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소년의 마음은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의 늪 속에 빠져 있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15세가 되던 다시 돌아와 가장 저명한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예수를 가르친 선생과 함께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두었다. 예수는 자기 부모와 그 선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예수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하였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예수의 반응 때문에 깊이 감정이 상하였고, 요셉은 그 소년의 이상스러운 의견들과 평소와는 다른 행위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결국, 유월절 주간은 예수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헌납식에 후보자로 왔던 자기 나이 또래의 많은 소년들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나 투르키스탄 그리고 파르티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서(極西) 지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의 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꽤 알고 있는 터였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었고, 이 나사렛 소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소는 광범위하게 대담 형식으로 150명이 넘는 소년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만남들의 결과로 이 소년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125:2.9 (1380.4)} Again and again, during the Passover week, his parents would find Jesus sitting off by himself with his youthful head in his hands, profoundly thinking. They had never seen him behave like this, and not knowing how much he was confused in mind and troubled in spirit by the experience through which he was passing, they were sorely perplexed; they did not know what to do. They welcomed the passing of the days of the Passover week and longed to have their strangely acting son safely back in Nazareth.

^{125:2.10 (1380.5)} Day by day Jesus was thinking through his problems. By the end of the week he had made many adjustments; but when the time came to return to Nazareth, his youthful mind was still swarming with perplexities and beset by a host of unanswered questions and unsolved problems.

^{125:2.11 (1380.6)} Before Joseph and Mary left Jerusalem, in company with Jesus' Nazareth teacher they made definite arrangements for Jesus to return when he reached the age of fifteen to begin his long course of study in one of the best-known academies of the rabbis. Jesus accompanied his parents and teacher on their visits to the school, but they were all distressed to observe how indifferent he seemed to all they said and did. Mary was deeply pained at his reactions to the Jerusalem visit, and Joseph was profoundly perplexed at the lad's strange remarks and unusual conduct.

^{125:2.12 (1380.7)} After all, Passover week had been a great event in Jesus' life. He had enjoyed the opportunity of meeting scores of boys about his own age, fellow candidates for the consecration, and he utilized such contacts as a means of learning how people lived in Mesopotamia, Turkestan, and Parthia, as well as in the Far-Western provinces of Rome. He was already fairly conversant with the way in which the youth of Egypt and other regions near Palestine grew up. There were thousands of young people in Jerusalem at this time, and the Nazareth lad personally met, and more or less extensively interviewed, more than one hundred and fifty. He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ose who hailed from the Far-Eastern and the remote Western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contacts the lad began to entertain a desire to travel about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learning how the various groups of his fellow men toiled for their livelihood.

제 3 장.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유월절 축제가 끝난 다음 주간의 첫 날 오전 중에, 나사렛 사람들은 성전 지역에서 함께 모이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모였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예수는 자기 부모들이 같이 돌아갈 동료들을 기다리

3. DEPARTURE OF JOSEPH AND MARY

^{125:3.1 (1381.1)}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Nazareth party should gather in the region of the temple at midforenoo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fter the Passover festival had ended. This they did and started out on the return journey to

고 있는 동안, 토론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모인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고,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고 갈 때의 그들의 관례대로 남자들과 여자들은 각각 따로 집단을 지어 걸어갔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자기 어머니와 여인들의 집단과 함께 행동하였었다. 이제는 어른으로 헌납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베다니를 향해 떠나고 있을 때, 예수는 성전 안에서 천사들에 대한 토론에 완벽하게 빠져 있었으므로 부모들이 떠날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오가 되어 토론 모임이 산회될 때까지도, 자기 혼자만이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사렛 여행객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의 당나귀를 끌고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여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하여 그 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려고 준비할 때에서야, 그가 같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여리고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유월절 주간 동안 보인 예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난 것이나 아닌가 하여 걱정을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게 은근히 원망하였다.

제 4 장. 성전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

한편, 예수는 그 날 오후 내내 성전에 남아있으면서 토론들을 들었고, 유월절의 많은 군중들이 거의 떠난 이후의 좀 더 조용하고 정숙한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예수는 한 번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의 토론들이 끝나자, 그는 혼자서 베다니로 갔으며, 시몬의 가족들은 그 때 막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세 명의 아이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는 그날 밤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 그 날 밤에 그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혼자 명상을 하면서 보냈다.

다음 날 예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길을 떠났다. 올리브 산 정상에서 그는 잠깐 멈추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전통에 얽매이고 로마 집단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전 일찍 성전에 도착한 그는 그 토론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

Nazareth. Jesus had gone into the temple to listen to the discussions while his parents awaited the assembly of their fellow travelers. Presently the company prepared to depart, the men going in one group and the women in another as was their custom in journeying to and from the Jerusalem festivals. Jesus had gone up to Jerusalem in company with his mother and the women. Being now a young man of the consecration, he was supposed to journey back to Nazareth in company with his father and the men. But as the Nazareth party moved on toward Bethany, Jesus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discussion of angels, in the temple, being wholly unmindful of the passing of the time for the departure of his parents. And he did not realize that he had been left behind until the noontime adjournment of the temple conferences.

125:3.2 (1381.2) The Nazareth travelers did not miss Jesus because Mary surmised he journeyed with the men, while Joseph thought he traveled with the women since he had gone up to Jerusalem with the women, leading Mary's donkey. They did not discover his absence until they reached Jericho and prepared to tarry for the night. After making inquiry of the last of the party to reach Jericho and learning that none of them had seen their son, they spent a sleepless night, turning over in their minds what might have happened to him, recounting many of his unusual reactions to the events of Passover week, and mildly chiding each other for not seeing to it that he was in the group before they left Jerusalem.

4. FIRST AND SECOND DAYS IN THE TEMPLE

125:4.1 (1381.3) In the meantime, Jesus had remained in the temple throughout the afternoon, listening to the discussions and enjoying the more quiet and decorous atmosphere, the great crowds of Passover week having about disappeared. At the conclusion of the afternoon discussions, in none of which Jesus participated, he betook himself to Bethany, arriving just as Simon's family made ready to partake of their evening meal. The three youngsters were overjoyed to greet Jesus, and he remained in Simon's house for the night. He visited very little during the evening, spending much of the time alone in the garden meditating.

125:4.2 (1381.4) Early next day Jesus was up and on his way to the temple. On the brow of Olivet he paused and wept over the sight his eyes beheld—a spiritually impoverished people, tradition bound and living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Roman legions. Early forenoon found him in the temple with his mind made up to take part in the

예수를 찾아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났다. 우선 그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 함께 머물렀던 친척들의 집으로 서둘러 갔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 듣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를 찾았으나 그의 행적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잠을 자기 위하여 친척집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회의가 있을 때, 예수는 용감하게 질문들을 했고,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성전에서의 토론에 참여하였지만, 언제나 소년다운 태도로 겸손하게 토론에 임하였다. 때때로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당황하게 하였지만, 그로부터 솔직한 공평성의 마음과 지식을 추구하려는 명백한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들은 그를 잘 봐주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술 취한 한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성전 안의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한 공의(公義)에 대해 그가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보다 편협한 선생들 중 하나가 이 소년의 간접적인 비난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그를 내려다보면서 몇 살이나고 물었다. 예수는 “13세에서 4개월 조금 더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아주 화가 난 그 선생이 다시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율법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유월절 기간 중에 헌납이 받아들여졌으며, 나사렛 학교에서 그의 공부를 완결하였다고 설명을 하자, 선생들이 하나같이 조롱하며, “우리가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군. 저 아이가 나사렛에서 왔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집회 영도자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통치자들이 13세가 아닌 12세에 그를 합법적으로 졸업시켰다면, 예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를 험담하던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성전 토론에서 학생의 자격으로 방해받지 않고 계속하여 참여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의 성전에서의 둘째 날이 완결되었을 때, 그는 다시 베다니로 가서 그 날 밤을 지냈다. 그 날도 그는 명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그가 마음속으로 중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깊은 사색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제 5 장. 성전에서의 셋째 날

예수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셋째 날, 갈릴리에서 온 소년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을 혼란시켰다는 한 소년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시몬 역시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베다니로부터 왔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날도 하루 종일 열심히 예수를 찾아 다녔으며, 성전에도 몇 번씩이나 왔었고, 그 중에 한 번은 그의 매혹적인 음성을

discussions. Meanwhile, Joseph and Mary also had arisen with the early dawn with the intention of retracing their steps to Jerusalem. First, they hastened to the house of their relatives, where they had lodged as a family during the Passover week, but inquiry elicited the fact that no one had seen Jesus. After searching all day and finding no trace of him, they returned to their relatives for the night.

125:4.3 (1382.1) At the second conference Jesus had made bold to ask questions, and in a very amazing way he participated in the temple discussions but alway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his youth. Sometimes his pointed questions were somewhat embarrassing to the learned teachers of the Jewish law, but he evinced such a spirit of candid fairness, coupled with an evident hunger for knowledge, that the majority of the temple teachers were disposed to treat him with every consideration. But when he presumed to question the justice of putting to death a drunken gentile who had wandered outside the court of the gentiles and unwittingly entered the forbidden and reputedly sacred precincts of the temple, one of the more intolerant teachers grew impatient with the lad's implied criticisms and, glowering down upon him, asked how old he was. Jesus replied, "thirteen years lacking a trifle more than four months." "Then," rejoined the now irate teacher, "why are you here, since you are not of age as a son of the law?" And when Jesus explained that he had received consecration during the Passover, and that he was a finished student of the Nazareth schools, the teachers with one accord derisively replied, "We might have known; he is from Nazareth." But the leader insisted that Jesus was not to be blamed i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at Nazareth had graduated him, technically, when he was twelve instead of thirteen; and notwithstanding that several of his detractors got up and left, it was ruled that the lad might continue undisturbed as a pupil of the temple discussions.

125:4.4 (1382.2) When this, his second day in the temple, was finished, again he went to Bethany for the night. And again he went out in the garden to meditate and pray. It was apparent that his mind was concerned with the contemplation of weighty problems.

5. THE THIRD DAY IN THE TEMPLE

125:5.1 (1382.3) Jesus' third day with the scribes and teachers in the temple witnessed the gathering of many spectators who, having heard of this youth from Galilee, came to enjoy the experience of seeing a lad confuse the wise men of the law. Simon also came down from Bethany to see what the boy was up to. Throughout this day Joseph and Mary continued their anxious search for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거의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토론모임들 중에서 그를 찾아 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날이 끝날 무렵 즈음에는 성전의 중요한 토론 모임의 모든 관심은 예수의 질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많은 질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성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至聖所)에는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2.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왜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남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3. 만약 하느님이 자기 자손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으시다면,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왜 동물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며—이것은 혹시 모세의 가르침들이 잘못 해석되어진 것은 아닌가?

4.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성전이 바쳐진 것인데, 세속적인 거래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현존을 허락하는 것은 바른 일인가?

5.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임시로 앉으실 영주인가? 아니면, 영적 왕국을 세우심에 있어서 생명의 빛으로서 활동하실 분인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이러한 질문들에 경이를 금치 못했지만, 시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다. 네 시간이 넘도록, 이 나사렛 소년은 유대 선생들에게, 생각을-자극하고 가슴을-탐구하는 질문들을 퍼부었다. 그는 장로들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묻고자 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는 능숙하고 미묘하게 질문들을 구사함으로써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주었고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가 질문을 하는 방식에는 총명성과 유머가 매혹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으므로,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소 화를 냈던 사람들 까지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예리한 질문들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사려가 깊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이 중대한 오후에, 그는 반대자를 교활하게 역이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뒤이어 일어났던 그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 전체 기간의 특성이기도 하였다. 젊어서나 그리고 후에 어른이 되어서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논리적인 승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자기본위적인 욕망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한 가지 일념 즉: 영속하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더욱 충분한 계시에만 깊은 관심을 두었다.

날이 저물자, 시몬과 예수는 함께 베다니로 돌아왔다. 길을 가는 동안 이 소년과 어른은 둘 모두 거의 말이 없었다. 다시 한 번 예수는 올리브산 언덕에 멈추어서 그 성과 성전을 바라보았으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Jesus, even going several times into the temple but never thinking to scrutinize the several discussion groups, although they once came almost within hearing distance of his fascinating voice.

125:5.2 (1382.4) Before the day had ended, the entire attention of the chief discussion group of the temple had become focused upon the questions being asked by Jesus. Among his many questions were:

125:5.3 (1382.5) 1. What really exists in the holy of holies, behind the veil?

125:5.4 (1382.6) 2. Why should mothers in Israel be segregated from the male temple worshipers?

125:5.5 (1382.7) 3. If God is a father who loves his children, why all this slaughter of animals to gain divine favor — has the teaching of Moses been misunderstood?

125:5.6 (1382.8) 4. Since the temple is dedicated to the worship of the Father in heaven, is it consistent to permit the presence of those who engage in secular barter and trade?

125:5.7 (1382.9) 5. Is the expected Messiah to become a temporal prince to sit on the throne of David, or is he to function as the light of life in the establishment of a spiritual kingdom?

125:5.8 (1383.1) And all the day through, those who listened marveled at these questions, and none was more astonished than Simon. For more than four hours this Nazareth youth plied these Jewish teachers with thought-provoking and heart-searching questions. He made few comments on the remarks of his elders. He conveyed his teaching by the questions he would ask. By the deft and subtle phrasing of a question he would at one and the same time challenge their teaching and suggest his own. In the manner of his asking a question there was an appealing combination of sagacity and humor which endeared him even to those who more or less resented his youthfulness. He was always eminently fair and considerate in the asking of these penetrating questions. On this eventful afternoon in the temple he exhibited that same reluctance to take unfair advantage of an opponent which characterized his entire subsequent public ministry. As a youth, and later on as a man, he seemed to be utterly free from all egoistic desire to win an argument merely to experience logical triumph over his fellows, being interested supremely in just one thing: to proclaim everlasting truth and thus effect a fuller revelation of the eternal God.

125:5.9 (1383.2) When the day was over, Simon and Jesus wended their way back to Bethany. For most of the distance both the man and the boy were silent. Again Jesus paused on the brow of Olivet, but as he viewed the city and its temple, he

조용히 기도를 하였다.

베다니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그는 흥에 겨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다시 정원으로 나갔으며, 그는 밤이 깊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어떤 확고한 계획을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율법과 형식과 의식 그리고 진부한 전통의 끔찍한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공허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던 이 소년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제 6 장. 성전에서의 넷째 날

예수는 이상하리만큼 육신의 부모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사로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들이 이때쯤이면 아마 집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뒤에 남겨 두고 온 것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였다.

그는 다시 성전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묵상하기 위해 올리브 산기슭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한 토론에 할애되었으며, 그 선생들은 예수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서까지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나이에 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수가 질문한 기도의 목적에 관해 그들이 거의 대답을 시작할 수 없었던 그 날 오후의 토론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앉히고 기도와 경배에 관한 그의 의견을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날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의 부모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능숙하게 논쟁하고 있다는 이 이상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소년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엘리자벳과 요한을 만나러 사가리아의 집으로 갔을 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그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사가리아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유다의 도시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 들렀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뜰들을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찾고 있는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게다가 그가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는지 상상하여 보라.

요셉은 말문이 막혔고, 마리아는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그 소년에게로 달려갔고, 그제야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서 있는 그에게, “아들아, 네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너의 아버지와 나는 지금까지 삼 일이나 넘게 상심하며 너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우리에게서

did not weep; he only bowed his head in silent devotion.

125:5.10 (1383.3) After the evening meal at Bethany he again declined to join the merry circle but instead went to the garden, where he lingered long into the night, vainly endeavoring to think out some definite plan of approach to the problem of his lifework and to decide how best he might labor to reveal to his spiritually blinded countrymen a more beautiful concept of the heavenly Father and so set them free from their terrible bondage to law, ritual, ceremonial, and musty tradition. But the clear light did not come to the truth-seeking lad.

6. THE FOURTH DAY IN THE TEMPLE

125:6.1 (1383.4) Jesus was strangely unmindful of his earthly parents; even at breakfast, when Lazarus's mother remarked that his parents must be about home by that time, Jesus did not seem to comprehend that they would be somewhat worried about his having lingered behind.

125:6.2 (1383.5) Again he journeyed to the temple, but he did not pause to meditate at the brow of Olivet. In the course of the morning's discussions much time was devoted to the law and the prophets, and the teachers were astonished that Jesus was so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in Hebrew as well as Greek. But they were amazed not so much by his knowledge of truth as by his youth.

125:6.3 (1383.6) At the afternoon conference they had hardly begun to answer his question relating to the purpose of prayer when the leader invited the lad to come forward and, sitting beside him, bade him state his own views regarding prayer and worship.

125:6.4 (1383.7) The evening before, Jesus' parents had heard about this strange youth who so deftly sparred with the expounders of the law, but it had not occurred to them that this lad was their son. They had about decided to journey out to the home of Zacharias as they thought Jesus might have gone thither to see Elizabeth and John. Thinking Zacharias might perhaps be at the temple, they stopped there on their way to the City of Judah. As they strolled through the courts of the temple, imagine their surprise and amazement when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issing lad and beheld him seated among the temple teachers.

125:6.5 (1384.1) Joseph was speechless, but Mary gave vent to her long-pent-up fear and anxiety when, rushing up to the lad, now standing to greet his astonished parents, she said: "My child,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It is now more than three days that your father and I have searched for you sorrowing. Whatever possessed you to desert

떠나도록 사로잡았느냐?”라고 말하였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이제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을 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소년으로의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이미 완결한 상태였고, 율법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헌납을 받아들였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가장 진지하고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 청년기 삶의 한 가운데에 있을 때,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신랄하게 꾸지람을 함으로써, 그가 진리의 선생으로서, 정의의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랑가득한 성격의 아버지의 증거자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여 불명예스럽게 끝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년은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게 하였던 모든 요인들을 너희가 공정하게 고려해 본다면, 그의 어머니의 즉흥적인 꾸지람에 대해 그 소년이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하였었는지 너희가 보다 더 잘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적인 생각 이후에 예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찾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이제 내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셨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예수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고, 예수는 자기 부모와 홀로 남게 되었다. 이윽고 그 젊은이는 세 사람의 난처했던 상황이 사라지자, 조용하게 말했다: “가시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모두 각자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던 일들입니다. 이제 집으로 떠나시지요.”

그들은 말없이 길을 재촉하여 그날 밤으로 여리고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올리브 산기슭에서 한번 멈추었을 뿐이며, 그 때 그는 밀려오는 격렬한 감정으로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흔들며 말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노예—로마의 멍에에 종속되고 너희들 자신의 전통의 희생자인—가 되었지만, 나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속박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의 부모도 그의 현존 앞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만아들의 행위를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예수는 그의 부모에게 대한 그의 애정을 확신시켰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걱정을 끼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다.

us?” It was a tense moment. All eyes were turned on Jesus to hear what he would say. His father looked reprovingly at him but said nothing.

125:6.6 (1384.2)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Jesus was supposed to be a young man. He had finished the regular schooling of a child, had been recognized as a son of the law, and had received consecration as a citizen of Israel. And yet his mother more than mildly upbraided him before all the people assembled, right in the midst of the most serious and sublime effort of his young life, thus bringing to an inglorious termination one of the greatest opportunities ever to be granted him to function as a teacher of trut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a revealer of the loving character of his Father in heaven.

125:6.7 (1384.3) But the lad was equal to the occasion. When you take into fair consideration all the factors which combined to make up this situation, you will be better prepared to fathom the wisdom of the boy's reply to his mother's unintended rebuke. After a moment's thought, Jesus answered his mother, saying: "Why is it that you have so long sought me? Would you not expect to find me in my Father's house since the time has come when I should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125:6.8 (1384.4) Everyone was astonished at the lad's manner of speaking. Silently they all withdrew and left him standing alone with his parents. Presently the young man relieved the embarrassment of all three when he quietly said: "Come, my parents, none has done aught but that which he thought best. Our Father in heaven has ordained these things; let us depart for home."

125:6.9 (1384.5) In silence they started out, arriving at Jericho for the night. Only once did they pause, and that on the brow of Olivet, when the lad raised his staff aloft and, quivering from head to foot under the surging of intense emotion, said: "O Jerusalem, Jerusalem, and the people thereof, what slaves you are — subservient to the Roman yoke and victims of your own traditions — but I will return to cleanse yonder temple and deliver my people from this bondage!"

125:6.10 (1384.6) On the three days' journey to Nazareth Jesus said little; neither did his parents say much in his presence. They were truly at a loss to understand the conduct of their first-born son, but they did treasure in their hearts his sayings, even though they could not fully comprehend their meanings.

125:6.11 (1384.7) Upon reaching home, Jesus made a brief statement to his parents, assuring them of his affection and implying that they need not fear he would again give any occasion for their

그는 짙막한 그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에게도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이나, 그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땅에서의 그의 계획을 정해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되어진 그의 부모의 노력들에 동의하기를 거절하곤 하였지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전념하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에 매우 암전하게 따랐고 육신적인 가족들의 관습에도 아무 불평 없이 따라 주었다. 그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는 그것을 따르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가족에 충실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수행에 자신의 전념을 조절하는 문제에서 말하자면 대가였다.

요셉은 혼란에 빠졌으나 마리아는, 올리브 산 위에서 예수가 메시아적인 사명에 관한 예언을 했던, 그러한 체험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리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새로운 힘을 얻은 그녀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방향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에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인 그의 오빠를 끌어 들였으며;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의 만아들이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이방인에 의한 정치적 속박의 멍에를 언제까지나 없애 줄 영도자관계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헌신하였다.

suffering anxiety because of his conduct. He concluded this momentous statement by saying: “While I must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 will also be obedient to my father on earth. I will await my hour.”

125:6.12 (1384.8) Though Jesus, in his mind, would many times refuse to *consent* to the well-intentioned but misguided efforts of his parents to dictate the course of his thinking or to establish the plan of his work on earth, still,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his dedication to the doing of his Paradise Father's will, he did most gracefully *conform* to the desires of his earthly father and to the usages of his family in the flesh. Even when he could not consent, he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conform. He was an artist in the matter of adjusting his dedication to duty to his obligations of family loyalty and social service.

125:6.13 (1385.1) Joseph was puzzled, but Mary, as she reflected on these experiences, gained comfort, eventually viewing his utterance on Olivet as prophetic of the Messianic mission of her son as Israel's deliverer. She set to work with renewed energy to mold his thoughts into patriotic and nationalistic channels and enlisted the efforts of her brother, Jesus' favorite uncle; and in every other way did the mother of Jesus address herself to the task of preparing her first-born son to assume the leadership of those who would restore the throne of David and forever cast off the gentile yoke of political bondage.

제 126 편 흑독한 2 년

⇨ 125

유랜시아 책

12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6 편 흑독한 2 년

섹션

소개

제 1 장.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제 2 장. 요셉의 죽음

제 3 장.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제 4 장.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

제 5 장. 경제적인 분투

PAPER 126

THE TWO CRUCIAL YEARS

SECTIONS

Introduction

1. His Fourteenth Year (A.D. 8)

2. The Death of Joseph

3. The Fifteenth Year (A.D. 9)

4. First Sermon in the Synagogue

5. The Financial Struggle

소개

예수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체험 중에서, 14살과 15살 때 가장 흑독한 시련을 맞이하였다. 자신의 신성과 운명에 대해 이미 자아-의식적으로 되기 시작한 이후, 그리고 내주하는 조절자와는 아직 많은 교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이 두 해 기간은 그의 사건 많은 유랜시아에서의 일생 중에서 가장 쓰라린 시절이었다.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가장 큰 시험, 실제적인 유혹을 받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초기의 혼란과 청년기의 문제들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떤 젊은 청년도 예수만큼 힘겨운 시험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

예수가 청년기의 발전을 이룩한 중요한 이 기간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에 대해, 예수가 충성된 아들이 되어—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일생에 대해 어머니가 세운 계획에, 그가 지금부터는 더욱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해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물질적인 망상과 은근한 가족적 자부심은 오래지 않아서 빛이 바래게 되었다; 얼마 가지 못하여 그녀는 더욱 완벽하게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 소년은 점점 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자기 문제들을 어

INTRODUCTION

126:0.1 (1386.1) OF ALL Jesus' earth-life experiences,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years were the most crucial. These two years, after he began to be self-conscious of divinity and destiny, and before he achieved a large measure of communication with his indwelling Adjuster, were the most trying of his eventful life on Urantia. It is this period of two years which should be called the great test, the real temptation. No human youth, in passing through the early confusions and adjustment problems of adolescence, ever experienced a more crucial testing than that which Jesus passed through during his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young manhood.

126:0.2 (1386.2) This important period in Jesus' youthful development began with the conclusion of the Jerusalem visit and with his return to Nazareth. At first Mary was happy in the thought that she had her boy back once more, that Jesus had returned home to be a dutiful son — not that he was ever anything else — and that he would henceforth be more responsive to her plans for his future life. But she was not for long to bask in this sunshine of maternal delusion and unrecognized family pride; very soon she was to be more completely disillusioned. More and more the boy was in the company of his father; less and less did

머니와 상의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의 부모들은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일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깊은 사색하는 일과 이 세상의 관련자들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부모는 예수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연민의 정과 사랑이 더욱 깊어갔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현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개심은 세월이 감에 따라 더 깊어졌다. 예수는 진지한 바리새인들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매우 존중하였으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정직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심히 혐오하였다; 진실하지 못한 모든 종교적 영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관계를 세밀히 관찰한 후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가 유혹을 받은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현자들 사이에서 이론 그의 공훈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들을 매우 우쭐하게 했으며, 특히 그를 가르쳤던 회당 학교 선생들에게는 더 할 나위가 없었다. 한동안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의 칭찬이 자자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그의 행위들에 대해 호의를 가졌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도록 운명되었다; 드디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도 실제로 위대한 선생이 나오게 되었다고 내다보았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예수가 15세가 되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허락되는 그 날을 고대하였다.

제 1 장.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그 해에 그는 열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그는 훌륭한 명에 만드는 자가 되었었고 그리고 천과 가죽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모두 능숙했다. 또한 전문적인 목수와 가구 만드는 자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해 여름에, 그는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나사렛 북서쪽에 있는 언덕 꼭대기로 자주 올라갔다. 그는 땅에서의 그의 증여의 본성에서 점진적으로 더욱 자아-의식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언덕은 100년 보다 좀 더 오래 전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자(聖者)인 시미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이 시미온의 언덕 꼭대기로부터 예수는 나사렛과 그 주변 지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메기도를 바라보며 이집트 군대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그보다 후대에서는 다른 군대가 유대의 왕 요시아를 참패시켰던 이야기를 회상하곤 하였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세라를 쳐부렸다는 장소인 타나크를 바라볼 수 있었다. 멀리로

he come to her with his problems, while increasingly both his parents failed to comprehend his frequent alternation between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 contemplation of his relation to his Father's business. Frankly, they did not understand him, but they did truly love him.

126:0.3 (1386.3) As he grew older, Jesus' pity and love for the Jewish people deepened, but with the passing years, there developed in his mind a growing righteous resentment of the presence in the Father's temple of the politically appointed priests. Jesus had great respect for the sincere Pharisees and the honest scribes, but he held the hypocritical Pharisees and the dishonest theologians in great contempt; he looked with disdain upon all those religious leaders who were not sincere. When he scrutinized the leadership of Israel, he was sometimes tempted to look with favor on the possibility of his becoming the Messiah of Jewish expectation, but he never yielded to such a temptation.

126:0.4 (1386.4) The story of his exploits among the wise men of the temple in Jerusalem was gratifying to all Nazareth, especially to his former teachers in the synagogue school. For a time his praise was on everybody's lips. All the village recounted his childhood wisdom and praiseworthy conduct and predicted that he was destined to become a great leader in Israel; at last a really great teacher was to come out of Nazareth in Galilee. And they all looked forward to the time when he would be fifteen years of age so that he might be permitted regularly to read the Scriptures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1. HIS FOURTEENTH YEAR (A.D. 8)

126:1.1 (1387.1) This is the calendar year of his fourteenth birthday. He had become a good yoke maker and worked well with both canvas and leather. He was also rapidly developing into an expert carpenter and cabinetmaker. This summer he made frequent trips to the top of the hill to the northwest of Nazareth for prayer and meditation. He was gradually becoming more self-conscious of the nature of his bestowal on earth.

126:1.2 (1387.2) This hill, a littl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previously, had been the “high place of Baal,” and now it was the site of the tomb of Simeon, a reputed holy man of Israel. From the summit of this hill of Simeon, Jesus looked out over Nazareth and the surrounding country. He would gaze upon Megiddo and recall the story of the Egyptian army winning its first great victory in Asia; and how, later on, another such army defeated the Judean king Josiah. Not far away he could look upon Taanach, where Deborah and

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버렸다고 배워온 도탄의 언덕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발산과 게리짐 산으로 눈을 돌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한 전설들을 혼자 회상해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요셉의 민족들과 관계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건들을 마음속에 회상하였다.

그는 회당 학교 교사들의 지도하에, 고등(高等) 과정들에 해당되는 독해(讀解)를 계속해 나갔으며, 집에서는 자기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알맞은 나이가 되는 대로 그들의 교육을 계속하여 맡아보았다.

예수가 다음 해 8월에 15세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요셉은 이 해 초기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저축해 두기로 하였다.

이 해 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자기의 만아들의 운명에 대하여 자주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진정으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그를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의 속을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게다가 그에게서 어떤 특출하거나 기적적인 사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떤 초인간적이거나 기적적인 솜씨를 보여 주기를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려왔지만, 그녀의 기대는 늘 비참할 정도의 실망으로 끝나곤 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의해서 용기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낙담하기까지 하였다. 그 당시의 독실한 신자들은, 선지자들과 약속의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명을 실증하고 자기들의 신성한 권위를 세워야한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부모들은 그의 장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

나사렛 가정의 개선된 경제적 조건이 가정 생활에 여러 모로 반영되었고 특히 목탄으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필기 석판으로 사용되는 흰색 칠판의 증가된 숫자에 반영되었다. 또한 예수는 그의 음악 교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는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 해 전체 기간은, 예수가 “자라가면서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표현하기에 안정맞춤이었다. 이 가족의 전망은 좋은 위치에 있었고 장래는 밝았다.

Barak defeated Sisera. In the distance he could view the hills of Dothan, where he had been taught Joseph's brethren sold him into Egyptian slavery. He then would shift his gaze over to Ebal and Gerizim and recount to himself the traditions of Abraham, Jacob, and Abimelech. And thus he recalled and turned over in his mind the historic and traditional events of his father Joseph's people.

126:1.3 (1387.3) He continued to carry on his advanced courses of reading under the synagogue teachers, and he also continued with the home education of his brothers and sisters as they grew up to suitable ages.

126:1.4 (1387.4) Early this year Joseph arranged to set aside the income from his Nazareth and Capernaum property to pay for Jesus' long course of study at Jerusalem, it having been planned that he should go to Jerusalem in August of the following year when he would be fifteen years of age.

126:1.5 (1387.5) By the beginning of this year both Joseph and Mary entertained frequent doubts about the destiny of their first-born son. He was indeed a brilliant and lovable child, but he was so difficult to understand, so hard to fathom, and again, nothing extraordinary or miraculous ever happened. Scores of times had his proud mother stood in breathless anticipation, expecting to see her son engage in some superhuman or miraculous performance, but always were her hopes dashed down in cruel disappointment. And all this was discouraging, even disheartening. The devout people of those days truly believed that prophets and men of promise always demonstrated their calling and established their divine authority by performing miracles and working wonders. But Jesus did none of these things; wherefore was the confusion of his parents steadily increased as they contemplated his future.

126:1.6 (1387.6) The improved economic condition of the Nazareth family was reflected in many ways about the home and especially in the increased number of smooth white boards which were used as writing slates, the writing being done with charcoal. Jesus was also permitted to resume his music lessons; he was very fond of playing the harp.

126:1.7 (1387.7) Throughout this year it can truly be said that Jesus “grew in favor with man and with God.” The prospects of the family seemed good; the future was bright.

제 2 장. 요셉의 죽음

숙명적인 날인 9월 25일 화요일이 오기까지

2. THE DEATH OF JOSEPH

126:2.1 (1388.1) All did go well until that fateful day of

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으며, 그 날 세포리로부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요셉이 분봉왕의 관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기둥기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는 비참한 소식을 나사렛 가정에 알려주었다. 세포리에서 온 메신저는 요셉의 집으로 오는 길에 목공소에 들려 예수에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렸고, 마리아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달려갔다. 예수는 그 즉시로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마리아는 자신이 남편의 곁으로 가는 것이 급하여 아무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때 10살이었던 야고보를 세포리까지 동행하게 하고, 예수에게는 그 동안 집에 남아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 주도록 지도하였으며, 그 때 마리아는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으로 옮겼으며, 다음 날 그의 선조들이 있는 곳에 장사 지냈다.

전망이 좋았고 장래가 밝았던 바로 그 때에, 곁으로 보기에 무자비한 손길이 이 나사렛 가정의 가장(家長)을 쳐서 넘어뜨렸고, 이 가정의 관련자들은 중단되었으며, 예수를 위한 모든 계획과 장래의 교육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막 14살이 지난 이 목수 소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성한 본성을 계시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임 명령을 완수해야 할 책임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어머니와 7명의 동생들—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른 한 동생을 부양해야만 할 책임도, 그의 젊은 인간 본성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실현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족이 된 가족들에게는, 나사렛의 이 소년만이 유일한 부양자이며 위안이였다. 그리하여, 운명의 이 젊은이에게 유란시아 위에서 사건에서의 자연 질서에 순응하여 일어나게 된, 이러한 발생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그러나 매우 교육적이고 교육단련적인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일찍 맡겨지는 듯이 보였으며, 이로써 예수는 한 인간 가족의 가장이 되었고, 자신의 동생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안에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가정생활의 수호자가 되었다.

예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수행해냈다. 적어도 그에게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난국이 예상되는 하나의 큰 문제가 비극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그는 이제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니다”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었었다. 그는 항상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 자세가 되어있었던 반면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자료로부터 근거를 도입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 때까지도 예수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자기 어머니를 방문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던, 세례를 받던 날에야 요한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Tuesday, September 25, when a runner from Sepphoris brought to this Nazareth home the tragic news that Joseph had been severely injured by the falling of a derrick while at work on the governor's residence. The messenger from Sepphoris had stopped at the shop on the way to Joseph's home, informing Jesus of his father's accident, and they went together to the house to break the sad news to Mary. Jesus desired to go immediately to his father, but Mary would hear to nothing but that she must hasten to her husband's side. She directed that James, then ten years of age, should accompany her to Sepphoris while Jesus remained home with the younger children until she should return, as she did not know how seriously Joseph had been injured. But Joseph died of his injuries before Mary arrived. They brought him to Nazareth, and on the following day he was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126:2.2 (1388.2) Just at the time when prospects were good and the future looked bright, an apparently cruel hand struck down the head of this Nazareth household, the affairs of this home were disrupted, and every plan for Jesus and his future education was demolished. This carpenter lad, now just past fourteen years of age,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he had not only to fulfill the commission of his heavenly Father to reveal the divine nature on earth and in the flesh, but that his young human nature must also shoulder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his widowed mother and seven brothers and sisters — and another yet to be born. This lad of Nazareth now became the sole support and comfort of this so suddenly bereaved family. Thus were permitted those occurrences of the natural order of events on Urantia which would force this young man of destiny so early to assume these heavy but highly educational and disciplinary responsibilities attendant upon becoming the head of a human family, of becoming father to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of supporting and protecting his mother, of functioning as guardian of his father's home, the only home he was to know while on this world.

126:2.3 (1388.3) Jesus cheerfully accepted the responsibilities so suddenly thrust upon him, and he carried them faithfully to the end. At least one great problem and anticipated difficulty in his life had been tragically solved — he would not now be expected to go to Jerusalem to study under the rabbis. It remained always true that Jesus “sat at no man's feet.” He was ever willing to learn from even the humblest of little children, but he never derived authority to teach truth from human sources.

126:2.4 (1388.4) Still he knew nothing of the Gabriel visit to his mother before his birth; he only learned of this from John on the day of his baptism, at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해가 지나면서, 나사렛의 이 젊은 목수는 다 음과 같은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들과 모든 종교적 관습들을 점점 더 깊이 분석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는가? 그것은 하느님에게 사람을 알려 주는가? 이 젊은이는 오락적이며 사교적인 측면을 온통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간과 정열을 점점 더 두 가지 목적에 쏟아 부었는데: 그것들은 가족의 부양하는 일과, 자기 아버지의 천상(天上)의 뜻을 이 세상에 서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었다.

이 해의 겨울 동안, 예수가 타는 하프 소리를 즐기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왜냐하면 예수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읽어주는 그리스어 경전을 듣기 위해 매일 밤마다 그의 집에 들르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었다.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상당한 돈이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관련자들은 꽤 순탄한 편이었다. 예수는 일찍부터 사업적인 판단력이 있었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총명성을 실증하였다.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검소하였다; 절약하면서도 관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의 현명하면서도 효과적인 행정-관리자였다.

그러나 예수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 에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 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 까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셉은 가버렸다. 요셉은 보통 찾아보기 힘든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그들 모두는 그를 그리워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 또는 그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들을 기회도 갖지 못하였 다는 생각에 더욱 애처로워하는 듯하였다.

제 3 장.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15살이 되는 이 해 중순경에—우리는 유대인 의 달력이 아니라 20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다—, 예수는 가정을 운영 하는 일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저축했던 돈은 모두 바닥이 났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이웃인 야곱과 요셉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나사렛에 있는 집들 중에서 하나를 처 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기 9년 4월 17일 수요일 밤에, 그 가정의 마지막 아기인 루티 태어났으며, 예수는 이렇게 힘들고 특별히 슬퍼하는 호된 시련의 기간 중에 처 해있는 어머니를 위안하고 섬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 거의 20여 년 동안(그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예수는 루트를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양육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가족의 일원들인 다른 아이

126:2.5 (1388.5) As the years passed, this young carpenter of Nazareth increasingly measured every institution of society and every usage of religion by the unvarying test: What does it do for the human soul? does it bring God to man? does it bring man to God? While this youth did not wholly neglect the recreational and social aspects of life, more and more he devoted his time and energies to just two purposes: the care of his family and the preparation to do his Father's heavenly will on earth.

126:2.6 (1389.1) This year it became the custom for the neighbors to drop in during the winter evenings to hear Jesus play upon the harp, to listen to his stories (for the lad was a master storyteller), and to hear him read from the Greek scriptures.

126:2.7 (1389.2) The economic affairs of the family continued to run fairly smoothly as there was quite a sum of money on hand at the time of Joseph's death. Jesus early demonstrated the possession of keen business judgment and financial sagacity. He was liberal but frugal; he was saving but generous. He proved to be a wise and efficient administrator of his father's estate.

126:2.8 (1389.3) But in spite of all that Jesus and the Nazareth neighbors could do to bring cheer into the home, Mary, and even the children, were overcast with sadness. Joseph was gone. Joseph was an unusual husband and father, and they all missed him. And it seemed all the more tragic to think that he died ere they could speak to him or hear his farewell blessing.

3. THE FIFTEENTH YEAR (A.D. 9)

126:3.1 (1389.4) By the middle of this fifteenth year — and we are reckoning time in accordance with the twentieth-century calendar, not by the Jewish year — Jesus had taken a firm grasp upon the management of his family. Before this year had passed, their savings had about disappeared, and they were face to face with the necessity of disposing of one of the Nazareth houses which Joseph and his neighbor Jacob owned in partnership.

126:3.2 (1389.5) On Wednesday evening, April 17, A.D. 9, Ruth, the baby of the family, was born, and to the best of his ability Jesus endeavored to take the place of his father in comforting and ministering to his mother during this trying and peculiarly sad ordeal. For almost a score of years (until he began his public ministry) no father could have loved and nurtured his daughter any more affectionately and faithfully than Jesus cared for little Ruth. And he was an equally good father to all

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이 해 동안에, 예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구체화시켰는데,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쳤으며, 이 기도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가정 경배로부터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형태의 찬미들과 여러 개의 공식적인 기도문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는 나이가 든 동생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표현하는—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과 마찬가지로—방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으며 자기들이 암기하고 있던 기도의 형식으로 늘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제시한 구절들을, 나이가 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도 그들이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결과로,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했던 이 구절들로 대부분 만들어 진 하나의 형식화된 기도를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다.

마침내 예수는, 가족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던 자신의 관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10월 어느 날 저녁에, 돌로 만든 낮은 탁자 앞에 앉아서, 약 18인치 정사각형의 매끄러운 나무판위에 목탄으로 그 기도문을 썼는데, 이 후부터는 이것이 가족들이 하는 기도의 표준이 되었다.

그 해에 예수는 혼란스런 생각들로 매우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 하였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려던 모든 계획은 이미 거의 효과적으로 없애 버렸다. 예수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그 해를 지내면서, 예수는 에녹서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유란시아에서의 중여 임무를 표현하는 하나의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 구절에서 따오도록 영향을 주었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시아에 대한 관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그런 후에 그는 자기가 결코 그 메시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민족을 도움을 주는 것은 애타게 갈망하였지만, 유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절대로 앉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영적 해방자나 도덕적 선생으로 국한 되어 있다고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히브리 경전에 나타난 예정되어진 메시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행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납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th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126:3.3 (1389.6) During this year Jesus first formulated the prayer which he subsequently taught to his apostles, and which to many has become known as “The Lord’s Prayer.” In a way it was an evolution of the family altar; they had many forms of praise and several formal prayers. After his father’s death Jesus tried to teach the older children to express themselves individually in prayer — much as he so enjoyed doing — but they could not grasp his thought and would invariably fall back upon their memorized prayer forms. It was in this effort to stimulate his older brothers and sisters to say individual prayers that Jesus would endeavor to lead them along by suggestive phrases, and presently, without intention on his part, it developed that they were all using a form of prayer which was largely built up from these suggestive lines which Jesus had taught them.

126:3.4 (1389.7) At last Jesus gave up the idea of having each member of the family formulate spontaneous prayers, and one evening in October he sat down by the little squat lamp on the low stone table, and, on a piece of smooth cedar board about eighteen inches square, with a piece of charcoal he wrote out the prayer which became from that time on the standard family petition.

126:3.5 (1389.8) This year Jesus was much troubled with confused thinking. Family responsibility had quite effectively removed all thought of immediately carrying out any plan for responding to the Jerusalem visitation directing him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Jesus rightly reasoned that the watchcare of his earthly father’s family must take precedence of all duties; that the support of his family must become his first obligation.

126:3.6 (1390.1) In the course of this year Jesus found a passage in the so-called Book of Enoch which influenced him in the later adoption of the term “Son of Man” as a designation for his bestowal mission on Urantia. He had thoroughly considered the idea of the Jewish Messiah and was firmly convinced that he was not to be that Messiah. He longed to help his father’s people, but he never expected to lead Jewish armies in overthrowing the foreign domination of Palestine. He knew he would never sit on the throne of David at Jerusalem. Neither did he believe that his mission was that of a spiritual deliverer or moral teacher solely to the Jewish people. In no sense, therefore, could his life mission be the fulfillment of the intense longings and supposed Messianic prophecies of the Hebrew scriptures; at least, not as the Jews understood these predictions of the prophets. Likewise he was certain he was never to appear as the Son of Man depicted by the Prophet

사람은 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서 묘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아갈 때가 오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만 할 것인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그는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서 그가 공부하고 있었던 묵시적인 책들 중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옛날의 에녹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의 흥미를 매우 끌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구절을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의 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리고 불쌍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이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예수가 이 구절들을 읽곤 하였을 때, (이들 가르침이 섞여 들어가게 된, 동방의 신비주의 가운데 많은 것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납득하고 있으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 경전들 속에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부분들과 유대인의 해방자에 대한 모든 이론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에녹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 때 그 책으로부터, 자신의 취임에 대한 명칭으로 “사람의 아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중에 대중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였을 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수는 어떠한 출처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힘을 갖고 있었으며, 그 진리를 채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 무렵에, 그는 앞으로 세상을 위하여 할 많은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결정을 내려놓았지만, 아직도 자기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관념을 굳게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젊은 시절 동안의 큰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자기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본질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는—자신의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그는 민족적인 해방자, 유대인의 선생 혹은 왕의 출현에 관하여 기록한 성서들 중에서 많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이 예언들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는 비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어

Daniel.

126:3.7 (1390.2) But when the time came for him to go forth as a world teacher, what would he call himself? What claim should he make concerning his mission? By what name would he be called by the people who would become believers in his teachings?

126:3.8 (1390.3) While turning all these problems over in his mind, he found in the synagogue library at Nazareth, among the apocalyptic books which he had been studying, this manuscript called “The Book of Enoch”; and though he was certain that it had not been written by Enoch of old, it proved very intriguing to him, and he read and reread it many times. There was one passage which particularly impressed him, a passage in which this term “Son of Man” appeared. The writer of this so-called Book of Enoch went on to tell about this Son of Man, describing the work he would do on earth and explaining that this Son of Man, before coming down on this earth to bring salvation to mankind, had walked through the courts of heavenly glory with his Father, the Father of all; and that he had turned his back upon all this grandeur and glory to come down on earth to proclaim salvation to needy mortals. As Jesus would read these passages (well understanding that much of the Eastern mysticism which had become admixed with these teachings was erroneous), he responded in his heart and recognized in his mind that of all the Messianic predictions of the Hebrew scriptures and of all the theories about the Jewish deliverer, none was so near the truth as this story tucked away in this only partially accredited Book of Enoch; and he then and there decided to adopt as his inaugural title “the Son of Man.” And this he did when he subsequently began his public work. Jesus had an unerring ability for the recognition of truth, and truth he never hesitated to embrace, no matter from what source it appeared to emanate.

126:3.9 (1390.4) By this time he had quite thoroughly settled many things about his forthcoming work for the world, but he said nothing of these matters to his mother, who still held stoutly to the idea of his being the Jewish Messiah.

126:3.10 (1390.5) The great confusion of Jesus' younger days now arose. Having settled something about the nature of his mission on earth,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 to show forth his Father's loving nature to all mankind — he began to ponder anew the many statements in the Scriptures referring to the coming of a national deliverer, a Jewish teacher or king. To what event did these prophecies refer? Was not he a Jew? or was he? Was he or was he not of the house of David? His mother averred he

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하였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 자신도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본성과 사명을 혼동했었던 것일까?

결국, 그의 어머니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과거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어머니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었다. 만약에 그가 하나의 새로운 선생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러한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대인 메시아와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가 사명을 착수한 후에는 가족들과, 유대 국가 그리고 종교와, 로마제국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자신과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8명의 배고픈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공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동안, 이 젊은 갈릴리 사람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리아는 가족을 위해 마련된 돈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비둘기 파는 일을 야고보에게 넘겼다. 그들은 이속고 두 번째 소를 구입하게 되었고, 미리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사렛의 이웃들에게 우유 판매를 시작하였다.

예수의 긴 시간 동안의 명상과,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자주 가는 것, 그리고 때때로 그가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많은 관념들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녀는 간혹 자기 아들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이므로 다른 젊은이들과는 어떤 면으로든지 다를 것임을 기억해냄으로써 결국 안정을 되찾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 까지도, 자기 생각들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자기 관념들 전부를 제시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 해부터 계속하여, 예수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납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걸으로 볼 때에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매우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는 연관-동료 인간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었다. 이렇게 유별난 상황의 독특성이 그로 하여금 그의 짐을 홀로 지도록 강요하였다.

was; his father had ruled that he was not. He decided he was not. But had the prophets confused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Messiah?

126:3.11 (1391.1) After all, could it be possible that his mother was right? In most matters, when differences of opinion had arisen in the past, she had been right. If he were a new teacher and *not* the Messiah, then how should he recognize the Jewish Messiah if such a one should appear in Jerusalem during the time of his earth mission; and, further, what should be his relation to this Jewish Messiah? And what should be his relation, after embarking on his life mission, to his family? to the Jewish commonwealth and religion? to the Roman Empire? to the gentiles and their religions? Each of these momentous problems this young Galilean turned over in his mind and seriously pondered while he continued to work at the carpenter's bench, laboriously making a living for himself, his mother, and eight other hungry mouths.

126:3.12 (1391.2) Before the end of this year Mary saw the family funds diminishing. She turned the sale of doves over to James. Presently they bought a second cow, and with the aid of Miriam they began the sale of milk to their Nazareth neighbors.

126:3.13 (1391.3) His profound periods of meditation, his frequent journeys to the hilltop for prayer, and the many strange ideas which Jesus advanced from time to time, thoroughly alarmed his mother. Sometimes she thought the lad was beside himself, and then she would steady her fears, remembering that he was, after all, a child of promise and in some manner different from other youths.

126:3.14 (1391.4) But Jesus was learning not to speak of all his thoughts, not to present all his ideas to the world, not even to his own mother. From this year on, Jesus' disclosures about what was going on in his mind steadily diminished; that is, he talked less about those things which an average person could not grasp, and which would lead to his being regarded as peculiar or different from ordinary folks. To all appearances he became commonplace and conventional, though he did long for someone who could understand his problems. He craved a trustworthy and confidential friend, but his problems were too complex for his human associates to comprehend. The uniqueness of the unusual situation compelled him to bear his burdens alone.

제 4 장.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

4. FIRST SERMON IN THE SYNAGOGUE

15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예수는 이제 안식일에 공식적으로 회당의 설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도 예수는, 연사가 없을 경우에 성서를 읽어달라는 청을 여러 번 받았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서, 그가 직접 예배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이르렀다. 따라서 15번째 생일이 지난 후 첫번째 안식일에, 카잔은 회당의 아침 예배봉사를 예수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젊은이는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을 선택하여 일어서서 읽기 시작하였다:

“주님 하느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슴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하느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느님의 옹보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 주께서 영화롭게 될 곳에, 주님이 심으신, 정의(正義)의 나무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주님 하느님께서 야마도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라. 아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만물의 주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 마리의 양, 아니면 강 같이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지구의 순환계 위에 앉으신 하느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볼 것이며, 누가 수효대로 만물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를 보라. 자기의 크신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의 힘이 강하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느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정의로움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이는 내가 주님 너의

126:4.1 (1391.5) With the coming of his fifteenth birthday, Jesus could officially occupy the synagogue pulpit on the Sabbath day. Many times before, in the absence of speakers, Jesus had been asked to read the Scriptures, but now the day had come when, according to law, he could conduct the service. Therefore on the first Sabbath after his fifteenth birthday the chazan arranged for Jesus to conduct the morning service of the synagogue. And when all the faithful in Nazareth had assembled, the young man, having made his selection of Scriptures, stood up and began to read:

126:4.2 (1391.6)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for the Lord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meek,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set the spiritual prisoners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God’s favor and the day of our God’s reckoning; to comfort all mourners, to give them beauty for ashes, the oil of joy in the place of mourning, a song of praise instead of the spirit of sorrow, that they may be called tree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wherewith he may be glorified.

126:4.3 (1392.1) “Seek good and not evil that you may live, and so the Lord, the God of hosts, shall be with you. Hate the evil and love the good; establish judgment in the gate. Perhaps the Lord God will be gracious to the remnant of Joseph.

126:4.4 (1392.2)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put away the evil of your doing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and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relieve the oppressed. Defend the fatherless and plead for the widow.

126:4.5 (1392.3) “Wherewith shall I come before the Lord, to bow myself before the Lord of all the earth? Shall I come before him with burnt offerings, with calves a year old? Will the Lord be pleased with thousands of rams, ten thousands of sheep, or with rivers of oil? Shall I give my first-born for my transgression, the fruit of my body for the sin of my soul? No! for the Lord has showed us, O me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eal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126:4.6 (1392.4) “To whom, then, will you liken God who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Lift up your eyes and behold who has created all these worlds, who brings forth their host by number and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He does all these things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 and because he is strong in power, not one fails. He gives power to the weak, and to those who are weary he increases strength.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I will help you; yes, I will uphold you with the right hand of my righteousness, for I am the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나의 하인으로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 모두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영원자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는 주님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읽고 난 다음, 그가 자리에 앉았으며, 그런 후에 사람들은 예수가 그토록 우아하게 자기들에게 읽어주었던 문구들을 꼼꼼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성읍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렇게 엄숙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열성적이고 진지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토록 어른스럽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야고보를 데리고 나사렛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두 장의 매끈한 나무판들 위에 목탄을 사용하여 그리스어로 십계명을 썼다. 나중에 마르다는 이 판들에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하였는데 이것들은 오랫동안 야고보의 작은 작업장 벽에 걸려 있었다.

제 5 장. 경제적인 분투

예수와 가족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초기의 겸소한 생활로 돌아갔다. 옷과 그리고 음식까지도 간소해졌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치즈는 풍부하였다. 제 철이 되면, 집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달이 지나갈수록 더욱 더 절약하는 생활의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매우 간단했으며; 가장 좋은 음식은 저녁을 위해 남겨두었다. 그러나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젊은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가정에서 들판에서 공장에서의 생활들을 잘 납득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그의 가르침들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들은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조예가 깊었는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 되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생애에 대한 예수의 계획들 모두가 어그러진 것 같았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태로 봐서는 그의 미래도 별로 밝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서 즉각적인 책임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예수의 일생은, 낙망에 빠져 있는 모든 이상가들에게 영속되는 위안을 주고 있다.

Lord your God. And I will hold your right hand, saying to you, fear not, for I will help you.

126:4.7 (1392.5) “And you are my witness, say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that all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the Eternal. I, even I, am the Lord, and beside me there is no savior.”

126:4.8 (1392.6) And when he had thus read, he sat down, and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pondering over the words which he had so graciously read to them. Never had his townspeople seen him so magnificently solemn; never had they heard his voice so earnest and so sincere; never had they observed him so manly and decisive, so authoritative.

126:4.9 (1392.7) This Sabbath afternoon Jesus climbed the Nazareth hill with James and, when they returned home, wrote out the Ten Commandments in Greek on two smooth boards in charcoal. Subsequently Martha colored and decorated these boards, and for long they hung on the wall over James's small workbench.

5. THE FINANCIAL STRUGGLE

126:5.1 (1392.8) Gradually Jesus and his family returned to the simple life of their earlier years. Their clothes and even their food became simpler. They had plenty of milk, butter, and cheese. In season they enjoyed the produce of their garden, but each passing month necessitated the practice of greater frugality. Their breakfasts were very plain; they saved their best food for the evening meal. However, among these Jews lack of wealth did not imply social inferiority.

126:5.2 (1392.9) Already had this youth well-nigh encompassed the comprehension of how men lived in his day. And how well he understood life in the home, field, and workshop is shown by his subsequent teachings, which so repletely reveal his intimate contact with all phases of human experience.

126:5.3 (1392.10) The Nazareth chazan continued to cling to the belief that Jesus was to become a great teacher, probably the successor of the renowned Gamaliel at Jerusalem.

126:5.4 (1393.1) Apparently all Jesus' plans for a career were thwarted. The future did not look bright as matters now developed. But he did not falter; he was not discouraged. He lived on, day by day, doing well the present duty and faithfully discharging the *immediate* responsibilities of his station in life. Jesus' life is the everlasting comfort of all disappointed idealists.

126:5.5 (1393.2)

날뎌풀이 목수의 임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예수는 그 해의 말쯤에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서 하루에 겨우 25 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회당 부과금과 반 세겔의 성전 세금은 그만 두고라도 정부 세금을 내는 일조차 힘에 겨워졌다. 그 해 동안에 세금 징수원은 예수로부터 돈을 더 거두려고 안간 힘을 다 쓰면서, 그의 하프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예수는 그리스어 경전 사본이 세금 징수원에 게 알려져서 압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15번째 생일에 자신의 성인식을 기념하여 주님께 제공하는 헌납으로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 그것을 기증하였다.

15살이 되던 이 해에, 요셉이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에 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헤롯에게 제출하였던 문제에 관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예수가 세포리로 갔었는데, 그때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세포리의 재정 담당자가 약속한 액수를 제시했었을 당시, 예수와 마리아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헤롯에게 직접 진정서를 냈었고, 이제 예수는 궁전 안에 서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에 그가 받아야만 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헤롯의 판결을 듣게 되었다. 그러한 부당한 결정 때문에, 예수는 그 이후 헤롯 안티파스를 결코 신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헤롯을 “그 여우”라고 언급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해와 다음 해 동안에, 예수는 목공소 작업대를 떠날 수 없었던 관계로, 카라반 여행자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작업장은 이미 그의 삼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는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다 같이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에 있었다. 이 무렵에 그는 낙타 집결 장소에 야고보를 보내서 세상 사건에 관한 정보들을 듣고 오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소식과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어른으로 자라면서, 그는 그 나이 전후에 있는 보통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곤란과 혼란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혹독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무의미한 명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신비적인 경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예수가 자기 집 바로 북쪽에 상당히 커다란 땅을 세내어 가족의 밭을 일구었던 것도 그해에 있던 일이었으며, 작은 밭을 꾸밀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분할되었다. 나이 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몫의 밭을 갖도록 하였고, 그들은 큰 경쟁을 벌이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애썼다. 채소를 기르는 시절에는, 그들의 만행이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밭에서 함께 보내 주었다. 예수는 동생들과 밭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시골로 가서 해방과 자유

126:5.5 (1393.2) The pay of a common day-laboring carpenter was slowly diminishing. By the end of this year Jesus could earn, by working early and late, only the equivalent of about twenty-five cents a day. By the next year they found it difficult to pay the civil taxes, not to mention the synagogue assessments and the temple tax of one-half shekel. During this year the tax collector tried to squeeze extra revenue out of Jesus, even threatening to take his harp.

126:5.6 (1393.3) Fearing that the copy of the Greek scriptures might be discovered and confiscated by the tax collectors, Jesus, on his fifteenth birthday, presented it to the Nazareth synagogue library as his maturity offering to the Lord.

126:5.7 (1393.4) The great shock of his fifteenth year came when Jesus went over to Sepphoris to receive the decision of Herod regarding the appeal taken to him in the dispute about the amount of money due Joseph at the time of his accidental death. Jesus and Mary had hoped for the receipt of a considerable sum of money when the treasurer at Sepphoris had offered them a paltry amount. Joseph's brothers had taken an appeal to Herod himself, and now Jesus stood in the palace and heard Herod decree that his father had nothing due him at the time of his death. And for such an unjust decision Jesus never again trusted Herod Antipas.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once alluded to Herod as “that fox.”

126:5.8 (1393.5) The close work at the carpenter's bench during this and subsequent years deprived Jesus of the opportunity of mingling with the caravan passengers. The family supply shop had already been taken over by his uncle, and Jesus worked altogether in the home shop, where he was near to help Mary with the family. About this time he began sending James up to the camel lo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world events, and thus he sought to keep in touch with the news of the day.

126:5.9 (1393.6) As he grew up to manhood, he passed through all those conflicts and confusions which the average young persons of previous and subsequent ages have undergone. And the rigorous experience of supporting his family was a sure safeguard against his having overmuch time for idle meditation or the indulgence of mystic tendencies.

126:5.10 (1393.7) This was the year that Jesus rented a considerable piece of land just to the north of their home, which was divided up as a family garden plot. Each of the older children had an individual garden, and they entered into keen competition in their agricultural efforts. Their eldest brother spent some time with them in the garden each day during the season of vegetable cultivation. As Jesus worked with his younger

를 만끽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농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 번 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골에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결국 갖지 못하였다;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속속들이 실천적이었던 젊은 예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자신과 가족들이 그들의 개별적 그리고 집합적 소원들이 가능한 최고의 만족을 얻도록 그들 상황의 실체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건에 조절하는 일에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예수는 한 때, 아버지가 헤롯의 궁전을 지으면서 받아야 할 상당한 돈을 자기들이 받게 되면 조그마한 농장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증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었다. 그는 실제로 가족을 시골로 이사시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두었었다. 그러나 헤롯이 요셉에게 주어야 할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시골에서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있는 그 상태대로, 그들은 이제 비둘기들 이외에도 세 마리의 소들과 네 마리의 양들과 닭 몇 마리와 한 마리의 당나귀 그리고 한 마리의 개를 소유하면서 농장 생활의 체험을 즐겼다.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까지도, 이 나사렛 가족 생활의 특징인 잘=규제된 관리 계획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15년째의 이 해가 끝나면서, 예수는 인간 체험에 있어서 그토록 위험스럽고 어려웠던 기간으로의 선회 시기, 좀 더 안정되었었던 아이 시절과 증가된 책임들과 고상한 성격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체험을 얻는 기회들을 가지면서 어른으로 되어 가는 것을 의식하는 시절 사이에서 겪은 과도기를 종결짓게 되었다. 마음과 육체의 성장기가 끝났으며, 이제 이 나사렛의 젊은이의 실제 생애가 시작되었다.

brothers and sisters in the garden, he many times entertained the wish that they were all located on a farm out in the country where they could enjoy the liberty and freedom of an unhampered life. But they did not find themselves growing up in the country; and Jesus, being a thoroughly practical youth as well as an idealist, intelligently and vigorously attacked his problem just as he found it, and did everything within his power to adjust himself and his family to the realities of their situation and to adapt their condition to the highest possible satisfaction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longings.

126:5.11 (1393.8) At one time Jesus faintly hoped that he might be able to gather up sufficient means, provided they could collect the considerable sum of money due his father for work on Herod's palace, to warrant undertaking the purchase of a small farm. He had really given serious thought to this plan of moving his family out into the country. But when Herod refused to pay them any of the funds due Joseph, they gave up the ambition of owning a home in the country. As it was, they contrived to enjoy much of the experience of farm life as they now had three cows, four sheep, a flock of chickens, a donkey, and a dog, in addition to the doves. Even the little tots had their regular duties to perform in the well-regulated scheme of management which characterized the home life of this Nazareth family.

126:5.12 (1394.1) With the close of this fifteenth year Jesus completed the traversal of that dangerous and difficult period in human existence, that time of transition between the more complacent years of childhood and the consciousness of approaching manhood with its increased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the acquirement of advanced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a noble character. The growth period for mind and body had ended, and now began the real career of this young man of Nazareth.

제 127 편 청년기 시절

⇨ 126

유란시아 책

12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7 편 청년기 시절

섹션

소개

- 제 1 장. 16살 되던 해 (서기 10년)
- 제 2 장. 17살 되던 해 (서기 11년)
- 제 3 장. 18살 되던 해 (서기 12년)
- 제 4 장. 19살 되던 해 (서기 13년)
- 제 5 장. 에즈라의 딸 레베카
- 제 6 장. 그의 20살 되던 해 (서기 14년)

PAPER 127

THE ADOLESCENT YEAR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Sixteenth Year (A.D. 10)
- 2. The Seventeenth Year (A.D. 11)
- 3. The Eighteenth Year (A.D. 12)
- 4. The Nineteenth Year (A.D. 13)
- 5. Rebecca, the Daughter of Ezra
- 6. His Twentieth Year (A.D. 14)

소개

예수가 청년기 시절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큰 가족의 가장이자 오직 하나뿐인 부양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재산은 바닥이 났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전(以前)-실존에 대해 점점 더 의식을 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사람들의 자녀에게 계시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육신을 입고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충분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청소년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거나 더 복잡한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어떤 젊은이도, 예수가 15세에서 20세가 되는 세월 동안 견디어야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시험적인 갈등들이나 혹은 더 쓰라린 상황들을 체험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악에 휩싸여 있고 죄로 혼란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청년기 시절의 삶을 실재적인 체험을 맛보면서, 사람의 아들은 네바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젊은이가 체험하는 생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지역우주 전역을 통하여 모든 세대들과 모든 세계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

INTRODUCTION

127:0.1 (1395.1) AS JESUS entered upon his adolescent years, he found himself the head and sole support of a large family. Within a few years after his father's death all their property was gone. As time passed, he became increasingly conscious of his pre-existence; at the same time he began more fully to realize that he was present on earth and in the flesh for the express purpose of revealing his Paradise Father to the children of men.

127:0.2 (1395.2) No adolescent youth who has lived or ever will live on this world or any other world has had or ever will have more weighty problems to resolve or more intricate difficulties to untangle. No youth of Urantia will ever be called upon to pass through more testing conflicts or more trying situations than Jesus himself endured during those strenuous years from fifteen to twenty.

127:0.3 (1395.3) Having thus tasted the actual experience of living these adolescent years on a world beset by evil and distraught by sin, the Son of Man became possessed of full knowledge about the life experience of the youth of all the realms of Nebadon, and thus forever he became the understanding refuge for the distressed and

게 언제까지나 그들을 납득하는 피난처가 된 것이다.

이 신성한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자가 되었고,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창조된 지능존재들의 의심할 수 없는 최극 통치자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또한 모든 세대의 존재들과, 개인적 자질 그리고 체험의 수준이 서로 다른 모든 존재들을 납득하는 위로자가 되었다.

제 1 장. 16살 되던 해 (서기 10년)

육신을 입고 태어난 아들은 평온한 유아기와 소년기를 체험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시험받고 힘들었던 전환기 시절을 탈피하게 되었다—그는 청년 예수가 되었다.

그 해에 그는 충분한 육체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는 남자답고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는 점점 더 침착하고 진지하게 되어갔지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그의 눈은 온유했으나 예리하였다; 그의 미소는 항상 남을 사로잡았고 위안을 주었다. 그의 음성은 음악소리 같았으나 위엄이 있었다; 그의 인사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으나 소박하였다. 그에게서는 언제든지, 심지어는 가장 일상적인 만남에서까지도,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양면적인 본성이 마주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는 듯하였다. 그는 언제든지 동정심이 가득한 친구와 위엄을 갖춘 선생으로서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특색들은, 그가 청년기 시절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현시가 시작하였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또한 인간 지능의 충분한 성장, 인간의 생각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러한 지능 발달을 위한 수용능력의 충만함을 성취하였다. 그는 건강하고 잘 균형 잡힌 육신, 예리하고 분석적인 마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기질,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졌지만 적극적인 성미를 갖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강하고 뛰어나고 매력적인 개인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그를 납득하기가 힘들어졌으며; 그들은 그의 말들 때문에 당황하였고 그의 행동들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어머니가, 만형이 유대 민족의 해방자가 되기로 운명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의 일생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이 마리아로부터 가족들만 아는 그러한 비밀을 듣고 받아들였었고 그 후에, 예수가 그러한 모든 관념들이나 의향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부인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라.

그 해에 시몬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집을 팔아야만 하게 되었

perplexed adolescents of all ages and on all worlds throughout the local universe.

127:0.4 (1395.4) Slowly, but certainly and by actual experience, this divine Son is *earning* the right to become sovereign of his universe, the unquestioned and supreme ruler of all created intelligences on all local universe worlds, the understanding refuge of the beings of all ages and of all degrees of personal endowment and experience.

1. THE SIXTEENTH YEAR (A.D. 10)

127:1.1 (1395.5) The incarnated Son passed through infancy and experienced an uneventful childhood. Then he emerged from that testing and trying transition stage between childhood and young manhood — he became the adolescent Jesus.

127:1.2 (1395.6) This year he attained his full physical growth. He was a virile and comely youth. He became increasingly sober and serious, but he was kind and sympathetic. His eye was kind but searching; his smile was always engaging and reassuring. His voice was musical but authoritative; his greeting cordial but unaffected. Always, even in the most commonplace of contacts, there seemed to be in evidence the touch of a twofold nature, the human and the divine. Ever he displayed this combination of the sympathizing friend and the authoritative teacher. And these personality traits began early to become manifest, even in these adolescent years.

127:1.3 (1395.7) This physically strong and robust youth also acquired the full growth of his human intellect, not the full experience of human thinking but the fullness of capacity for such intellectual development. He possessed a healthy and well-proportioned body, a keen and analytical mind, a kind and sympathetic disposition, a somewhat fluctuating but aggressive temperament, all of which were becoming organized into a strong, striking, and attractive personality.

127:1.4 (1396.1) As time went on, it became more difficult for his mother and his brothers and sisters to understand him; they stumbled over his sayings and misinterpreted his doings. They were all unfitted to comprehend their eldest brother's life because their mother had given them to understand that he was destined to become the deliverer of the Jewish people. After they had received from Mary such intimations as family secrets, imagine their confusion when Jesus would make frank denials of all such ideas and intentions.

127:1.5 (1396.2) This year Simon started to school, and they were compelled to sell another house.

다. 이제는 야고보가 세 명의 여동생들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두 여동생들은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다. 루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바로 미리암과 마르다가 맡아보았다. 유대인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대개 거의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똑같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으나(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다), 회당 학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학교를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해 내내, 예수는 작업대에서 조금도 떠날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일거리가 많았다; 그의 솜씨가 매우 우월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이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그에게는 한가하게 지낼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곤 하였다.

그 해 말경에는, 가족을 양육하여 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자로서 자신의 일을 대중적으로 시작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들이 고대하는 유대인의 메시야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제까지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녀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생전에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관념이 무엇이건 간에 내버려두기로 결정하였다. 그 해부터, 어머니에게나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문제들은 너무나 특수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관해 그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리기는 하였지만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다; 가능한 한 모든 시간을 어린 동생들과 보내려고 노력하였고 동생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토록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였다; 자기들이 그토록 쉽게 계획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는 대신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그가 목공소에서 매일같이 일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매우 많았지만, 그를 매우 사랑하였고, 가정을 위해 맡겨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있었다.

제 2 장. 17살 되던 해 (서기 11년)

이 무렵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역에 가담하려는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으며,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심하였다. 이 욱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강한 민족주의자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열

James now took charge of the teaching of his three sisters, two of whom were old enough to begin serious study. As soon as Ruth grew up, she was taken in hand by Miriam and Martha. Ordinarily the girls of Jewish families received little education, but Jesus maintained (and his mother agreed) that girls should go to school the same as boys, and since the synagogue school would not receive them, there was nothing to do but conduct a home school especially for them.

127:1.6 (1396.3) Throughout this year Jesus was closely confined to the workbench. Fortunately he had plenty of work; his was of such a superior grade that he was never idle no matter how slack work might be in that region. At times he had so much to do that James would help him.

127:1.7 (1396.4) By the end of this year he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after rearing his family and seeing them married, enter publicly upon his work as a teacher of truth and as a revealer of the heavenly Father to the world. He knew he was not to become the expected Jewish Messiah, and he concluded that it was next to useless to discuss these matters with his mother; he decided to allow her to entertain whatever ideas she might choose since all he had said in the past had made little or no impression upon her and he recalled that his father had never been able to say anything that would change her mind. From this year on he talked less and less with his mother, or anyone else, about these problems. His was such a peculiar mission that no one living on earth could give him advice concerning its prosecution.

127:1.8 (1396.5) He was a real though youthful father to the family; he spent every possible hour with the youngsters, and they truly loved him. His mother grieved to see him work so hard; she sorrowed that he was day by day toiling at the carpenter's bench earning a living for the family instead of being, as they had so fondly planned, at Jerusalem studying with the rabbis. While there was much about her son that Mary could not understand, she did love him, and she most thoroughly appreciated the willing manner in which he shouldered the responsibility of the home.

2. THE SEVENTEENTH YEAR (A.D. 11)

127:2.1 (1396.6) At about this time there was considerable agitation, especially at Jerusalem and in Judea, in favor of rebellion against the payment of taxes to Rome. There was coming into existence a strong nationalist party, presently

심당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란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온 한 집단의 조직원들이 갈릴리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나사렛까지 왔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고 많은 질문들을 했으나, 그 당에 참여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그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 충분히 밝히기를 사양했으며, 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 있는 많은 그의 젊은 동료들도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다.

마리아는 그를 설득하여 참여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라고 요청하는 자기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겠다고 그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렇게 던지시 비치는 말에 대해, 그는 단지 어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주장을 철회하였다.

예수의 삼촌들 중에서 한 사람(마리아의 오빠인 시몬)은 이미 이 집단에 가입하였고,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예수와 그의 삼촌은 약간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나사렛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 일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놓고 그 도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꽤가 갈리는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절반가량의 젊은이들은 민족주의자 조직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반은 좀 더 온건한 애국자 집단을 만들어 예수가 그들의 영도자관계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에게 이러한 명예로운 직위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그 직위를 사양하자, 그들이 몹시 놀랐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거절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방인들에게 돈을 대부하는 유대인 갑부 이삭이, 예수가 목공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에 있는 이 애국자들의 영도자관계가 된다면, 그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나서게 되자, 이 사태는 더욱 난처하게 되었다.

그 때 겨우 17살이 된 예수는, 자신의 일생 초기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고 어려웠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하려는 외국의 압제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영적 영도자들이 애국적인 문제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려는 선동에 유대 종교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갑절이나 더 어려웠다.

예수의 입장은, 그의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그에게 민족주의자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하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

to be called the Zealots. The Zealots, unlike the Pharisees, were not willing to await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y proposed to bring things to a head through political revolt.

127:2.2 (1396.7) A group of organizers from Jerusalem arrived in Galilee and were making good headway until they reached Nazareth. When they came to see Jesus, he listened carefully to them and asked many questions but refused to join the party. He declined fully to disclose his reasons for not enlisting, and his refusal had the effect of keeping out many of his youthful fellows in Nazareth.

127:2.3 (1397.1) Mary did her best to induce him to enlist, but she could not budge him. She went so far as to intimate that his refusal to espouse the nationalist cause at her behest was insubordination, a violation of his pledge made upon their return from Jerusalem that he would be subject to his parents; but in answer to this insinuation he only laid a kindly hand on her shoulder and, looking into her face, said: “My mother, how could you?” And Mary withdrew her statement.

127:2.4 (1397.2) One of Jesus’ uncles (Mary’s brother Simon) had already joined this group, subsequently becoming an officer in the Galilean division. And for several years there was something of an estrangement between Jesus and his uncle.

127:2.5 (1397.3) But trouble began to brew in Nazareth. Jesus’ attitude in these matters had resulted in creating a division among the Jewish youths of the city. About half had joined the nationalist organization, and the other half began the formation of an opposing group of more moderate patriots, expecting Jesus to assume the leadership. They were amazed when he refused the honor offered him, pleading as an excuse his heavy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they all allowed. But the situation was still further complicated when, presently, a wealthy Jew, Isaac, a moneylender to the gentiles, came forward agreeing to support Jesus’ family if he would lay down his tools and assume leadership of these Nazareth patriots.

127:2.6 (1397.4) Jesus, then scarcely seventeen years of age, was confronted with one of the most delicate and difficult situations of his early life. Patriotic issues, especially when complicated by tax-gathering foreign oppressors, are always difficult for spiritual leaders to relate themselves to, and it was doubly so in this case since the Jewish religion was involved in all this agitation against Rome.

127:2.7 (1397.5) Jesus’ position was made more difficult because his mother and uncle, and even his younger brother James, all urged him to join

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나사렛 유대인들이 등록하였고, 이 운동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젊은 이들도 예수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두 같이 등록하려고 하였다. 나사렛에서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준 단 한 분은 전에 그를 가르쳤던 카잔이었으며, 나사렛의 시민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대중적인 호소에 대해 그의 대답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에게 조언해 주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그가 대중적인 정책에 의식적으로 피를 쓴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 때까지 그는 사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솔직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모든 진실을 발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공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좀 더 성숙된 성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명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적 신의와 민족적 충성심은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의 가족들은 혼란 속에 빠졌고, 그의 젊은 친구들은 꽤나 갈렸고, 그 성읍의 모든 유대인 대표자들에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에게 책임이 돌려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확정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런 종류의 소동은 더욱 그러하였다.

무슨 조치든지 취해져야만 하였다. 그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만 하게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감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의무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과부인 어머니와 8명의 동생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물질적인 생활필수품들) 이상(以上)의 어떤 것들, 아버지의 보살핌과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참한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떠날게 된 그러한 의무를 양심상 도저히 저버릴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처음부터 변명하였던 그 이유를 고수하였다. 그는 그러한 의무로부터 자기를 기꺼이 해방시켜 주려는 어머니와 큰 동생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신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반복하면서, “돈은 사랑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도중에 예수는 여러 번 자신의 “일생의 사명”에 대해 암시하였지만, 그것이 군사적 관념과 모순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끝마칠 때까지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들이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사렛의 모든 주민들은, 그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이 문제는 모든 고상한 유대인들의 정서와 매우 잘 부합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의 답변은 대부분의 청중들의 가슴을 움직였으며;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일부분의 사람들도, 계획에 없었던 야고보의 연설이 이 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되었다. 바로 그 날 카잔이 야고보에게 연설하도록 연습시켰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the nationalist cause. All the better Jews of Nazareth had enlisted, and those young men who had not joined the movement would all enlist the moment Jesus changed his mind. He had but one wise counselor in all Nazareth, his old teacher, the chazan, who counseled him about his reply to the citizens' committee of Nazareth when they came to ask for his answer to the public appeal which had been made. In all Jesus' young life this was the very first time he had consciously resorted to public strategy. Therefore, always had he depended upon a frank statement of truth to clarify the situation, but now he could not declare the full truth. He could not intimate that he was more than a man; he could not disclose his idea of the mission which awaited his attainment of a riper manhood. Despite these limitations his religious fealty and national loyalty were directly challenged. His family was in a turmoil, his youthful friends in division, and the entire Jewish contingent of the town in a hubbub. And to think that he was to blame for it all! And how innocent he had been of all intention to make trouble of any kind, much less a disturbance of this sort.

127:2.8 (1397.6) Something had to be done. He must state his position, and this he did bravely and diplomatically to the satisfaction of many, but not all. He adhered to the terms of his original plea, maintaining that his first duty was to his family, that a widowed mother and eight brothers and sisters needed something more than mere money could buy — the physical necessities of life — that they were entitled to a father's watchcare and guidance, and that he could not in clear conscience release himself from the obligation which a cruel accident had thrust upon him. He paid compliment to his mother and eldest brother for being willing to release him but reiterated that loyalty to a dead father forbade his leaving the family no matter how much money was forthcoming for their material support, making his never-to-be-forgotten statement that “money cannot love.” In the course of this address Jesus made several veiled references to his “life mission” but explained tha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might be inconsistent with the military idea, it, along with everything else in his life, had been given up in order that he might be able to discharge faithfully his obligation to his family. Everyone in Nazareth well knew he was a good father to his family, and this was a matter so near the heart of every noble Jew that Jesus' plea found an appreciative response in the hearts of many of his hearers; and some of those who were not thus minded were disarmed by a speech made by James, which, while not on the program, was delivered at this time. That very day the chazan had rehearsed James in his speech, but that was their secret.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신이 가족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만 성장해 있었다면, 예수가 민족 해방 운동에 틀림없이 도움을 주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가 가족들과 함께 남아있도록 허락한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가족 중에서 단 하나의 영도자 대신에 다섯 명의 충성스러운 민족주의자들을 갖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형님-아버지의 지도아래 자라나는 우리 다섯 형제들 중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스러웠던 상황이 꽤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나게 하였다.

그 위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러한 선동은 계속되었다; 예수가 다시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되었고, 갈라진 정서는 끝내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다른 발생 사건들과 합쳐져서 증강되어, 예수가 훗날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부터 나사렛은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정서의 분리를 유지하였다.

그 해에 야고보가 학교를 졸업하였고,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연장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멍에와 쟁기를 만드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반면에 예수는 집을 완결하는 일과 숙련자의 작업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 해에 예수의 마음이 조직화되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점차 결합시키게 되었으며, 아들이 증여된 이후의 모든 세계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보통 필사자들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감시자와 똑같은, 내주하는 감시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성의 조직화를 모두 성취하였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밤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났던, 그의 형 임마누엘이 보낸 메신저의 방문 이외에는 아무런 초월적인 사건도 이 젊은이의 생애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

제 3 장. 18살 되던 해 (서기 12년)

그 해를 지나는 동안, 집과 밭을 제외하고, 가족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들이 처분되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저당 잡히고 있는 마지막 부동산(다른 하나의 담보로 잡혀 있는 하나를 제외하고)이 팔렸다. 이 돈은, 세금 납부와, 야고보를 위한 연장들의 구입, 그리고 카라반이 머무르는 곳 가까이에 전에 가지고 있던 가정용품과 수리 가게의 대금을 얼마간 지불하는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야고보가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목공소를 다시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127:2.9 (1398.1) James stated that he was sure Jesus would help to liberate his people if he (James) were only old enough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and that, if they would only consent to allow Jesus to remain “with us, to be our father and teacher, then you will have not just one leader from Joseph’s family, but presently you will have five loyal nationalists, for are there not five of us boys to grow up and come forth from our brother-father’s guidance to serve our nation?” And thus did the lad bring to a fairly happy ending a very tense and threatening situation.

127:2.10 (1398.2) The crisis for the time being was over, but never was this incident forgotten in Nazareth. The agitation persisted; not again was Jesus in universal favor; the division of sentiment was never fully overcome. And this, augmented by other and subsequent occurrences, was one of the chief reasons why he moved to Capernaum in later years. Henceforth Nazareth maintained a division of sentiment regarding the Son of Man.

127:2.11 (1398.3) James graduated at school this year and began full-time work at home in the carpenter shop. He had become a clever worker with tools and now took over the making of yokes and plows while Jesus began to do more house finishing and expert cabinet work.

127:2.12 (1398.4) This year Jesus made great progress in the organization of his mind. Gradually he had brought his divine and human natures together, and he accomplished all this organization of intellect by the force of his own *decisions* and with only the aid of his indwelling Monitor, just such a Monitor as all normal mortals on all postbestowal-Son worlds have within their minds. So far, nothing supernatural had happened in this young man’s career except the visit of a messenger, dispatched by his elder brother Immanuel, who once appeared to him during the night at Jerusalem.

3. THE EIGHTEENTH YEAR (A.D. 12)

127:3.1 (1398.5) In the course of this year all the family property, except the home and garden, was disposed of. The last piece of Capernaum property (except an equity in one other), already mortgaged, was sold. The proceeds were used for taxes, to buy some new tools for James, and to make a payment on the old family supply and repair shop near the caravan lot, which Jesus now proposed to buy back since James was old enough to work at the house shop and help Mary about the home. With the financial pressure thus eased for the time being, Jesus decided to take

당분간 조금 수월해지자, 예수는 유월절에 야고보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가기 위해 하루 먼저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갔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5년 전에 자기에게 가르쳤듯이, 가는 도중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에 관하여 야고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에, 그들은 생소한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였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민족적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고보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소년이었으며, 예수가 필생의 과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견해에 충분하게 동의하지 않았고, 그가 가족들의 부양을 떠맡게 되어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유월절 행사에 데려가 준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하였고, 그 전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실 때 더욱 그러하였다. 예수와 그의 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야곱이 곧 보게 될 광경들에 관해 그에게 미리 가르쳐주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전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받았던 그러한 충격을 동생이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광경들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매우 즐겼다.

예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위해 야고보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예수가 유월절 가족의 가장(家長) 자격으로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온 유월절 어린양을 가지고 의식을 치렀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리아는 야고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는 밤이 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성전 예배봉사에 참석하였으며,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날 아침,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 올리브 산기슭에 쉬는 동안, 야고보는 경탄하면서 환성을 질렀고, 예수는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고보는 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날 저녁 그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고, 다음 날에는 집으로 떠나려고 하였지만, 야고보는 선생들의 토론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러 가자고 졸랐다.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은밀하게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토론하는 것들을 들었지만, 예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사람과 하느님의 마음을 자각하고 있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은 너무도 미숙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단지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James to the Passover. They went up to Jerusalem a day early, to be alone, going by way of Samaria. They walked, and Jesus told James about the historic places en route as his father had taught him on a similar journey five years before.

127:3.2 (1399.1) In passing through Samaria, they saw many strange sights. On this journey they talked over many of their problems, personal, family, and national. James was a very religious type of lad, and while he did not fully agree with his mother regarding the little he knew of the plans concerning Jesus' lifework, he did look forward to the time when he would be abl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so that Jesus could begin his mission. He was very appreciative of Jesus' taking him up to the Passover, and they talked over the future more fully than ever before.

127:3.3 (1399.2) Jesus did much thinking as they journeyed through Samaria, particularly at Bethel and when drinking from Jacob's well. He and his brother discussed the traditions of Abraham, Isaac, and Jacob. He did much to prepare James for what he was about to witness at Jerusalem, thus seeking to lessen the shock such as he himself had experienced on his first visit to the temple. But James was not so sensitive to some of these sights. He commented on the perfunctory and heartless manner in which some of the priests performed their duties but on the whole greatly enjoyed his sojourn at Jerusalem.

127:3.4 (1399.3) Jesus took James to Bethany for the Passover supper. Simon had been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and Jesus presided over this household as the head of the Passover family, having brought the paschal lamb from the temple.

127:3.5 (1399.4) After the Passover supper Mary sat down to talk with James while Martha, Lazarus, and Jesus talked together far into the night. The next day they attended the temple services, and James was received into the commonwealth of Israel. That morning, as they paused on the brow of Olivet to view the temple, while James exclaimed in wonder, Jesus gazed on Jerusalem in silence. James could not comprehend his brother's demeanor. That night they again returned to Bethany and would have departed for home the next day, but James was insistent on their going back to visit the temple, explaining that he wanted to hear the teachers. And while this was true, secretly in his heart he wanted to hear Jesus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as he had heard his mother tell about. Accordingly, they went to the temple and heard the discussions, but Jesus asked no questions. It all seemed so puerile and insignificant to this awakening mind of man and God — he could only pity them. James was

예수가 질문을 하지 않자, 야고보는 실망하였다. 동생의 물음에 그는 단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여리고와 요단 계곡을 지나 집으로 향하였으며, 예수는 길을 가면서 자기가 13살에 이 길을 지나갔던 지난번의 여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였다.

나사렛에 돌아오자, 예수는 옛날의 가족 수리소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세상 사방에서와 근처 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워하였다. 예수는 사람들—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매 달 그 가게에 대한 불입금을 지불하였고, 야고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을 계속 부양하였다.

예수는 외부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일 년 중 여러 차례, 회당에서 안식일 경전 구절을 계속해서 읽었으며, 그가 읽은 구절에 대한 주석을 여러 번 요청 받기도 하였지만, 그는 대개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절들을 골랐다. 그는 몇 개의 구절들을 골라 배열함으로써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는 데 능숙하였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는 한 번도 빠지 않고, 안식일 오후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보를 하였다.

이 무렵에 카잔이 철학적인 토의를 위한 젊은이의 모임을 창시하였고, 그들은 각각 다른 회원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자기 집에서도 자주 모였는데, 예수는 이 모임에서 탁월한 일원(一員)이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예수는 최근의 민족적 운동 파문으로 잃었던 동네에서의 자신의 명성을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의 사회생활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많은 나사렛의 남녀 젊은이들 중에는 다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9월에, 엘리자벳과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하였다. 아버지를 잃은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 목공소를 맡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나사렛에 남아있으라고 권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대 지방의 구릉지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실천적으로 매우 쪼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자기 아들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두 젊은이들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수와 요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우 상세하고도 개인적 문제들을 의논했다. 그들이 방문을 끝마치고 떠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시작한 후에 대중을 위한 봉사 안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자신이 목격하

disappointed that Jesus said nothing. To his inquiries Jesus only made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127:3.6 (1399.5) The next day they journeyed home by Jericho and the Jordan valley, and Jesus recounted many things by the way, including his former trip over this road when he was thirteen years old.

127:3.7 (1399.6) Upon returning to Nazareth, Jesus began work in the old family repair shop and was greatly cheered by being able to meet so many people each day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surrounding districts. Jesus truly loved people — just common folks. Each month he made his payments on the shop and, with James's help, continued to provide for the family.

127:3.8 (1399.7) Several times a year, when visitors were not present thus to function, Jesus continued to read the Sabbath scriptures at the synagogue and many times offered comments on the lesson, but usually he so selected the passages that comment was unnecessary. He was skillful, so arranging the order of the reading of the various passages that the one would illuminate the other. He never failed, weather permitting, to take his brothers and sisters out on Sabbath afternoons for their nature strolls.

127:3.9 (1400.1) About this time the chazan inaugurated a young men's club for philosophic discussion which met at the homes of different members and often at his own home, and Jesus became a prominent member of this group. By this means he was enabled to regain some of the local prestige which he had lost at the time of the recent nationalistic controversies.

127:3.10 (1400.2) His social life, while restricted, was not wholly neglected. He had many warm friends and stanch admirers among both the young men and the young women of Nazareth.

127:3.11 (1400.3) In September, Elizabeth and John came to visit the Nazareth family. John, having lost his father, intended to return to the Judean hills to engage in agriculture and sheep raising unless Jesus advised him to remain in Nazareth to take up carpentry or some other line of work. They did not know that the Nazareth family was practically penniless. The more Mary and Elizabeth talked about their sons, the more they became convinced that it would be good for the two young men to work together and see more of each other.

127:3.12 (1400.4) Jesus and John had many talks together; and they talked over some very intimate and personal matters. When they had finished this visit, they decided not again to see each other until they should meet in their public service after “the heavenly Father should call” them to their work. John was tremendously impressed by what he

있던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 자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의 일생 동안의 사명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에 대해 확신하였지만, 예수가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직도 여러 해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작은 농장을 보살피고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만족해하였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는 그 날 까지만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 해 12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이 나사렛 가족에게는 두 번째의 죽음이 찾아왔다. 아기 동생 아모스가 고열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맏아들과 함께 이슬픈 시간을 견디어 낸 후부터,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를 진정한 가장으로 충심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실제로 자격이 있는 가장이었다.

4년 동안이나 그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더 낮아졌으며; 해마다 그들은 빈곤한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 해의 말경에는 힘든 경제 사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야고보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장례비용이 제일 큰 문제였다. 그러나 예수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미소는 우리에게 더욱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매일 매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굽히지 않는 실천적인 낙천주의는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다른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세월과 일들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러한 용기는, 자신들의 빈곤한 처지로 인하여 울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고상한 성격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예수는 바로 당면한 일을 해결하는 데에 그의 모든 마음과 혼과 육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깊은 사고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여기에 지치지 않는 참을성이 더해져서, 그로 하여금 힘든 필사자 실존을 체험해야 하는 시험을— 마치 “보이지 않는 그를 보는 것처럼 살면서”— 견디어 내게 해주었다.

제 4 장. 19살 되던 해 (서기 13년)

이 무렵에,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그녀가 그를 아들로 여기던 생각은 줄어들었고; 점점 더 아이들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매일의 생활은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어려움들로 꽉 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의

saw at Nazareth that he should return home and labor for the support of his mother. He became convinced that he was to be a part of Jesus' life mission, but he saw that Jesus was to occupy many years with the rearing of his family; so he was much more content to return to his home and settle down to the care of their little farm and to minister to the needs of his mother. And never again did John and Jesus see each other until that day by the Jordan when the Son of Man presented himself for baptism.

127:3.13 (1400.5) On Saturday afternoon, December 3, of this year, death for the second time struck at this Nazareth family. Little Amos, their baby brother, died after a week's illness with a high fever. After passing through this time of sorrow with her first-born son as her only support, Mary at last and in the fullest sense recognized Jesus as the real head of the family; and he was truly a worthy head.

127:3.14 (1400.6) For four years their standard of living had steadily declined; year by year they felt the pinch of increasing poverty. By the close of this year they faced one of the most difficult experiences of all their uphill struggles. James had not yet begun to earn much, and the expenses of a funeral on top of everything else staggered them. But Jesus would only say to his anxious and grieving mother: “Mother-Mary, sorrow will not help us; we are all doing our best, and mother's smile, perchance, might even inspire us to do better. Day by day we are strengthened for these tasks by our hope of better days ahead.” His sturdy and practical optimism was truly contagious; all the children lived in an atmosphere of anticipation of better times and better things. And this hopeful courage contributed mightily to the development of strong and noble characters, in spite of the depressiveness of their poverty.

127:3.15 (1400.7) Jesus possessed the ability effectively to mobilize all his powers of mind, soul, and body on the task immediately in hand. He could concentrate his deep-thinking mind on the one problem which he wished to solve, and this, in connection with his untiring *patience*, enabled him serenely to endure the trials of a difficult mortal existence — to live as if he were “seeing Him who is invisible.”

4. THE NINETEENTH YEAR (A.D. 13)

127:4.1 (1401.1) By this time Jesus and Mary were getting along much better. She regarded him less as a son; he had become to her more a father to her children. Each day's life swarmed with practical and immediate difficulties. Less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횃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부양하고 기르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

그 해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는 아이들을 키우는 자기 방법—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유대인 방식 대신에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대하여 어머니가 동의하기까지 충분히 설득하였다. 예수는 자기 가정과 그리고 대중적-가르침 생애에 두루 변함없이 긍정적 형태의 권고를 이용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저것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옛 선조시대 금기(禁忌)에서 유래한 부정적인 형태의 가르침은 결코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금지함으로서 드러나는 악이 강조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의 성과를 명령함으로서 선한 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집안에서의 기도 시간은 가족의 복지에 관련되는 어떤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상의하는 기회였다.

예수는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거의 혹은 전혀 벌을 주지 않고도 그들로 하여금 즉시 그리고 가슴에서 우리나를 복종할 수 있도록 현명한 단련을 시작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유다였는데, 그에게는 가정의 행위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벌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자주 느꼈다. 세 번의 경우 있어서는, 고의로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다가 자아-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에게 벌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에 대한 벌칙은 나이든 다른 형제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졌고, 벌이 주어지기 전에 유다 자신의 동의도 받았다.

예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또한 모든 그의 행정-관리적 규율에는 신선하게 탄력적인 해석과 적응에서의 개별존재성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형이 행동하는 공의의 영에 매우 감명 받도록 하였다. 그는 결코 임의로 자기 형제들을 단련 시키지 않았으며, 그러한 한결같은 공정성과 개인적 배려는, 가족 모두가 예수를 무척 따르도록 하였다.

야고보와 시몬은 자신들의 호전성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난 친구들을 설득과 무저항의 방법으로 진정시키려는 예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고, 그들의 경우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요셉과 유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집에서는 따르면서도 친구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자신들을 방어하였다; 특히 유다가 이러한 가르침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무저항이 가족의 규칙이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아이들 모두는, 특히 여자아이들은 다정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서의 자신들의 문제들을 예수와 의논하려 하였고 그를 신뢰하였다.

frequently they spoke of his lifework, for, as time passed, all their thought was mutually devoted to the support and upbringing of their family of four boys and three girls.

127:4.2 (1401.2) By the beginning of this year Jesus had fully won his mother to the acceptance of his methods of child training — the positive injunction to do good in the place of the older Jewish method of forbidding to do evil. In his home and throughout his public-teaching career Jesus invariably employed the *positive* form of exhortation. Always and everywhere did he say, “You shall do this — you ought to do that.” Never did he employ the negative mode of teaching derived from the ancient taboos. He refrained from placing emphasis on evil by forbidding it, while he exalted the good by commanding its performance. Prayer time in this household was the occasion for discussing anything and everything relating to the welfare of the family.

127:4.3 (1401.3) Jesus began wise discipline upon his brothers and sisters at such an early age that little or no punishment was ever required to secure their prompt and wholehearted obedience. The only exception was Jude, upon whom on sundry occasions Jesus found it necessary to impose penalties for his infractions of the rules of the home. On three occasions when it was deemed wise to punish Jude for self-confessed and deliberate violations of the family rules of conduct, his punishment was fixed by the unanimous decree of the older children and was assented to by Jude himself before it was inflicted.

127:4.4 (1401.4) While Jesus was most methodical and systematic in everything he did, there was also in all his administrative rulings a refreshing elasticity of interpretation and an individuality of adaptation that greatly impressed all the children with the spirit of justice which actuated their father-brother. He never arbitrarily disciplined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such uniform fairness and personal consideration greatly endeared Jesus to all his family.

127:4.5 (1401.5) James and Simon grew up trying to follow Jesus’ plan of placating their bellicose and sometimes irate playmates by persuasion and nonresistance, and they were fairly successful; but Joseph and Jude, while assenting to such teachings at home, made haste to defend themselves when assailed by their comrades; in particular was Jude guilty of violating the spirit of these teachings. But nonresistance was not a *rule* of the family. No penalty was attached to the violation of personal teachings.

127:4.6 (1401.6) In general, all of the children, particularly the girls, would consult Jesus about their childhood troubles and confide in him just as they would have in an affectionate father.

야고보는 온건하고 침착한 젊은이로 자라났지만, 예수처럼 영적 경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신실한 일꾼인 반면에 훨씬 더 영적이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보다는, 야고보가 더 우수한 학생이었다. 요셉은 민첩하지 못하였고 다른 아이들보다 지적 차원에도 뒤떨어졌다. 시몬은 마음씨 좋은 아이였지만 너무 심한 망상가였다. 그는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예수와 마리아에게 상당한 근심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항상 착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아이였다. 유다는 말쑥꾼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이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과 적극성을 모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그녀가 갖고 있는 균형 감각과 사려 깊은 분별력은 거의 소유하지 못하였다.

미리암은 고상하고 영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온건하고 분별력 있는 딸이었다. 마르다는 생각과 행동이 좀 느렸지만 매우 믿을만하고 유능한 아이였다. 아기 루트는 가족들에게 밝은 빛과 같았다; 생각 없이 말하긴 하였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격인 제일 큰오빠를 거의 경배하다시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녀를 버릇없이 키우지는 않았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아이였으나, 그 도시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가족 안에서 가장 미인인 미리암을 따라가지는 못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수는 안식일에 지키는 실천과 다른 많은 종교적 양상에 관련된 가족 교육들과 격식들을 많이 자유화하고 변경시켰으며, 마리아는 이러한 변화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무렵에 예수는 그 집안의 확고부동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 해에 유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예수는 그 경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하프를 팔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여가를 즐기던 마지막 남은 도구가 사라졌다. 그는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로했을 때에는 하프 연주를 매우 즐기곤 했었다. 그러나 자기 하프가 적어도 세금 징수원에게 압수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제 5 장. 에즈라의 딸 레베카

예수는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나사렛에서의 그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중의 하나였고, 젊은 여인들 대부분은 그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예수는 건장하고 지성적인 뛰어난 남성이었고 영적 영도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부자 상인 에즈라의 맏딸인 레베카가 이 요셉의 아들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동생인 미리암에게 고백하였고, 미리암은 다시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마리아는 대단히 흥분하였다. 이제 그녀는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 된 자기 아들을 잃게 되려

127:4.7 (1401.7) James was growing up to be a well-balanced and even-tempered youth, but he was not so spiritually inclined as Jesus. He was a much better student than Joseph, who, while a faithful worker, was even less spiritually minded. Joseph was a plodder and not up to the intellectual level of the other children. Simon was a well-meaning boy but too much of a dreamer. He was slow in getting settled down in life and was the cause of considerable anxiety to Jesus and Mary. But he was always a good and well-intentioned lad. Jude was a firebrand. He had the highest of ideals, but he was unstable in temperament. He had all and more of his mother's determination and aggressiveness, but he lacked much of her sense of proportion and discretion.

127:4.8 (1402.1) Miriam was a well-balanced and level-headed daughter with a keen appreciation of things noble and spiritual. Martha was slow in thought and action but a very dependable and efficient child. Baby Ruth was the sunshine of the home; though thoughtless of speech, she was most sincere of heart. She just about worshiped her big brother and father. But they did not spoil her. She was a beautiful child but not quite so comely as Miriam, who was the belle of the family, if not of the city.

127:4.9 (1402.2) As time passed, Jesus did much to liberalize and modify the family teachings and practices related to Sabbath observance and many other phases of religion, and to all these changes Mary gave hearty assent. By this time Jesus had become the unquestioned head of the house.

127:4.10 (1402.3) This year Jude started to school, and it was necessary for Jesus to sell his harp in order to defray these expenses. Thus disappeared the last of his recreational pleasures. He much loved to play the harp when tired in mind and weary in body, but he comforted himself with the thought that at least the harp was safe from seizure by the tax collector.

5. REBECCA, THE DAUGHTER OF EZRA

127:5.1 (1402.4) Although Jesus was poor, his social standing in Nazareth was in no way impaired. He was one of the foremost young men of the city and very highly regarded by most of the young women. Since Jesus was such a splendid specimen of robust and intellectual manhood, and considering his reputation as a spiritual leader, it was not strange that Rebecca, the eldest daughter of Ezra, a wealthy merchant and trader of Nazareth, should discover that she was slowly falling in love with this son of Joseph. She first confided her affection to Miriam, Jesus' sister, and Miriam in turn talked all this over with her mother. Mary was

는 것일까? 어려운 상황들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결혼이 예수의 장래 사명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따금씩, 그녀는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었다. 그녀와 미리암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한 후, 예수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는 특별한 운명의 아들이다; 앞으로 위대한 종교적 영도자, 또는 어쩌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을 레베카에게 직접 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레베카는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기쁨에 넘쳤고, 오히려 예수에게 전생(全生)을 제공하면서 그의 영도자관계로서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로 전보다도 더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욱 신실하고 힘 있는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녀 자신에게) 다짐하였다. 그녀는, 마리아가 반대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를 잃게 되는 두려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석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이 목수의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허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예수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도움을 그의 가족에게 기꺼이 제공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 레베카는 마리아와 미리암에게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하였으며,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대담하게 예수에게 직접 얘기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레베카의 17살 생일 축하연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예수는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이 공감하는 태도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어서 레베카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다정하게 대답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일으켜야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에는, “인간적인 모든 책임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자신의 혈육에 대한 충성심—을 완수하는 일”에는, 그 어떤 많은 돈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레베카의 아버지는, 가족 헌신에 관한 예수의 말에 매우 감명을 받았고 더 이상 대화에서 물러났다. 그는 단지 자기 부인인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를 사위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너무 과분하오.”라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서, 레베카와의 파란 많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예수는 그의 삶에서, 소년과 소녀 또는 청년과 처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귀어 왔었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실천적인 세상의 관련사에서의 절박한 문제들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일에 관련된” 자신의 궁극적 생애에 대해 골몰하게 만드는 깊은 사색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었다; 인간의 결혼으로 극치를 이루는 개인적 사랑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평범한 인간 존재들이 반드시 직면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너희와 똑같이

intensely aroused. Was she about to lose her son, now become the indispensable head of the family? Would troubles never cease? What next could happen? And then she paused to contemplate what effect marriage would have upon Jesus' future career; not often, but at least sometimes, did she recall the fact that Jesus was a “child of promise.” After she and Miriam had talked this matter over, they decided to make an effort to stop it before Jesus learned about it, by going direct to Rebecca, laying the whole story before her, and honestly telling her about their belief that Jesus was a son of destiny; that he was to become a great religious leader, perhaps the Messiah.

127:5.2 (1402.5) Rebecca listened intently; she was thrilled with the recital and more than ever determined to cast her lot with this man of her choice and to share his career of leadership. She argued (to herself) that such a man would all the more need a faithful and efficient wife. She interpreted Mary's efforts to dissuade her as a natural reaction to the dread of losing the head and sole support of her family; but knowing that her father approved of her attraction for the carpenter's son, she rightly reckoned that he would gladly supply the family with sufficient income fully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Jesus' earnings. When her father agreed to such a plan, Rebecca had further conferences with Mary and Miriam, and when she failed to win their support, she made bold to go directly to Jesus. This she did with the co-operation of her father, who invited Jesus to their home for the celebration of Rebecca's seventeenth birthday.

127:5.3 (1403.1) Jesus listened attentively and sympathetically to the recital of these things, first by the father, then by Rebecca herself. He made kindly reply to the effect that no amount of money could take the place of his obligation personally to rear his father's family, to “fulfill the most sacred of all human trusts — loyalty to one's own flesh and blood.” Rebecca's father was deeply touched by Jesus' words of family devotion and retired from the conference. His only remark to Mary, his wife, was: “We can't have him for a son; he is too noble for us.”

127:5.4 (1403.2) Then began that eventful talk with Rebecca. Thus far in his life, Jesus had made little distinction in his association with boys and girls, with young men and young women. His mind had been altogether too much occupied with the pressing problems of practical earthly affairs and the intriguing contemplation of his eventual career “about his Father's business” ever to have given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consummation of personal love in human marriage. But now he was face to face with another of those problems which every average human being must confront and decide. Indeed was he “tested in all points like as

시험을 받았다.”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레베카에게 그녀가 보여준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진지하게 고마워하면서,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세월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형제같은 배려와 순수한 우정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여인하고도 자유로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자신은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혹시 운명의 아들이라면, 나는 나의 운명이 현시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 평생동안 떠맡아야만 할 어떤 책무가 있음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레베카는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그녀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고, 나사렛을 떠나자고 아버지에게 끈덕지게 졸랐으며, 그가 마침내 세포리로 이사 가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레베카는 자기에게 청혼하는 많은 남자들에게, 한 가지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적—그녀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살아 있는 진리의 선생으로서의 그의 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살고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대중을 위한 수고에서의 사건 많은 나날들 내내 그를 따라 다녔으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들어간 그 날도 그 자리에 (예수의 눈에 띄지 않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세상들에게 “온통 사랑으로 가득차고 그리고 만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숙명적이고 비극적인 그 날 오후에도 마리아 곁에 있는 “다른 여인들 가운데” 서 있었다.

제 6 장. 그의 20살 되던 해 (서기 14년)

레베카가 예수에게 품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렛에 소문이 퍼졌고 나중에는 가버나움까지도 알려졌으며, 그리하여, 마치 남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여인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다른 훌륭한 여인의 개인적 헌신을 거절해야만 하는 체험을 다시 하지 않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좀 더 경건하고 경배적인 성질의 것이 되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는 예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였고 그의 본체 그대로를 사랑하였으며, 자아-만족을 위해서나 그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의 인간적 개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레베카의 헌신도 화제가 되었다.

미리암은 레베카의 사랑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 오빠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의 미래 사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예수를 자기의 이상으로 여기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

you are.”

127:5.5 (1403.3) After listening attentively, he sincerely thanked Rebecca for her expressed admiration, adding, “it shall cheer and comfort me all the days of my life.” He explained that he was not free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any woman other than those of simple brotherly regard and pure friendship. He made it clear that his first and paramount duty was the rearing of his father’s family, that he could not consider marriage until that was accomplished; and then he added: “If I am a son of destiny, I must not assume obligations of lifelong duration until such a time as my destiny shall be made manifest.”

127:5.6 (1403.4) Rebecca was heartbroken. She refused to be comforted and importuned her father to leave Nazareth until he finally consented to move to Sepphoris. In after years, to the many men who sought her hand in marriage, Rebecca had but one answer. She lived for only one purpose — to await the hour when this, to her, the greatest man who ever lived would begin his career as a teacher of living truth. And she followed him devotedly through his eventful years of public labor, being present (unobserved by Jesus) that day when he rode triumphantly into Jerusalem; and she stood “among the other women” by the side of Mary on that fateful and tragic afternoon when the Son of Man hung upon the cross, to her, as well as to countless worlds on high, “the one altogether lovely and the greatest among ten thousand.”

6. HIS TWENTIETH YEAR (A.D. 14)

127:6.1 (1403.5) The story of Rebecca’s love for Jesus was whispered about Nazareth and later on at Capernaum, so that, while in the years to follow many women loved Jesus even as men loved him, not again did he have to reject the personal proffer of another good woman’s devotion. From this time on human affection for Jesus partook more of the nature of worshipful and adoring regard. Both men and women loved him devotedly and for what he was, not with any tinge of self-satisfaction or desire for affectionate possession. But for many years, whenever the story of Jesus’ human personality was recited, the devotion of Rebecca was recounted.

127:6.2 (1404.1) Miriam, knowing fully about the affair of Rebecca and knowing how her brother had forsaken even the love of a beautiful maiden (not realizing the factor of his future career of destiny), came to idealize Jesus and to love him with a touching and profound affection as for a father as

정을 가지고 사랑하였다.

그들은 도저히 잘 제공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수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레베카와의 일을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여행할 것을 권유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은 나사로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족 다음으로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는 메기도와 안티파트리스와 리다를 경유하여 갔으며, 이 지역의 일부는 그가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지나갔던 길이었다. 그는 유월절에 도착할 때까지 4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전쟁터였던 메기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성전과 모여 있는 방문객들의 무리를 바라보느라 잠시 멈추었을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임명되어진 제사장들과 함께, 헤롯이 준공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는 점점 더 치솟는 특이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고 싶었다. 나사로는 예수와 같은 나이였고, 이제는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방문한 당시에는 나사로의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마르다는 예수보다 한 살 조금 더 많았고 마리아는 그보다 두 살 어렸다. 예수는 세 사람 모두에게 우상화(偶像化)된 이상(理想)이었다.

이번 방문에서, 전통에 대항하여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반항심—예수가 판단하기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못 나타내는 예식적 실천 관행에 대한 분개심의 표현—이 발생하였다. 예수가 오고 있는 것을 몰랐던 나사로는, 여리고로 가는 길 아래쪽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예수는 그냥 나사로의 집에 남아서 같이 그 축제를 기념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없다”고 나사로가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말로 그러한 유치하고 무의미한 의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긴 시간에 걸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엄숙하고도 강렬한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일어나자, 예수는 “우리 민족들 중에서 어두움에 갇혀 있고 유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자기들의 하느님을 따르게 내버려두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빛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흑암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지식 속에서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하였다.

황혼 무렵이 된 저녁에,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아서, 믿음이 깊은 유대인으로서 전례가 없는, 유월절 양 없이 지내는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되어졌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것들에 대하여 예수는 “생명의 빵”과

well as for a brother.

127:6.3 (1404.2) Although they could hardly afford it, Jesus had a strange longing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His mother, knowing of his recent experience with Rebecca, wisely urged him to make the journey. He was not markedly conscious of it, but what he most wanted was an opportunity to talk with Lazarus and to visit with Martha and Mary. Next to his own family he loved these three most of all.

127:6.4 (1404.3) In making this trip to Jerusalem, he went by way of Megiddo, Antipatris, and Lydda, in part covering the same route traversed when he was brought back to Nazareth on the return from Egypt. He spent four days going up to the Passover and thought much about the past events which had transpired in and around Megiddo, the international battlefield of Palestine.

127:6.5 (1404.4) Jesus passed on through Jerusalem, only pausing to look upon the temple and the gathering throngs of visitors. He had a strange and increasing aversion to this Herod-built temple with its politically appointed priesthood. He wanted most of all to see Lazarus, Martha, and Mary. Lazarus was the same age as Jesus and now head of the house; by the time of this visit Lazarus's mother had also been laid to rest. Martha was a little over one year older than Jesus, while Mary was two years younger. And Jesus was the idolized ideal of all three of them.

127:6.6 (1404.5) On this visit occurred one of those periodic outbreaks of rebellion against tradition — the expression of resentment for those ceremonial practices which Jesus deemed misrepresentative of his Father in heaven. Not knowing Jesus was coming, Lazarus had arranged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friends in an adjoining village down the Jericho road. Jesus now proposed that they celebrate the feast where they were, at Lazarus's house. “But,” said Lazarus, “we have no paschal lamb.” And then Jesus entered upon a prolonged and convincing dissertation to the effect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truly concerned with such childlike and meaningless rituals. After solemn and fervent prayer they rose, and Jesus said: “Let the childlike and darkened minds of my people serve their God as Moses directed; it is better that they do, but let us who have seen the light of life no longer approach our Father by the darkness of death. Let us be free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of our Father's eternal love.”

127:6.7 (1404.6) That evening about twilight these four sat down and partook of the first Passover feast ever to be celebrated by devout Jews without the paschal lamb. The unleavened bread and the wine had been made ready for this Passover, and these emblems, which Jesus termed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물”이라는 말을 붙인 후에 동행자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그들은 방금 받은 가르침을 엄숙하게 준수하며 먹었다. 그 때부터, 그가 베다니에 방문할 때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로 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은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할 의도가 없음을 예수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집에 있는 동생들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결혼문제에 대하여 마리아가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바로 그해였다. 그녀는, 만약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면 결혼을 하겠느냐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예수는 그녀에게, 당면한 의무감으로 인해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일들은 “나의 때”, “나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되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이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이미 마음속에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해에 예수는 자신의 필사자 그리고 신성한 본성을 하나의 단순하고 효력적인 인간 개별존재성으로 좀 더 엮어 가는 임무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남득 방면에서 더 계속 성장하였다.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재산들(집을 제외한)이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가버나움에 부분으로 있던 재산의 지분을 팔아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남기고 간 전 재산의 마지막이었다. 가버나움에서의 이 부동산 거래는 세베대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과 이루어졌다.

요셉이 그 해에 회당학교를 졸업해서 집에 있는 목공소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소진되었지만, 이제 그들 중에서 세 사람이 규칙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였다.

예수는 빠른 속도로 한 사람의 어른, 청년이 아닌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낙심되는 경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았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목적이 현실적으로 무산되었을 경우에도 용기 있게 견디어 나갈 수 있었다. 불공정을 당하였을 때에도 공정하고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 땅에서의 실존의 실천적인 요구들에 자신의 영적 삶의 이상들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배워 나갔다. 그는 당장 시급한 필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보다 높고 먼 장래의 이상주의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방법도 계속 배웠

and “the water of life,” he served to his companions, and they ate in solemn conformity with the teachings just imparted. It was his custom to engage in this sacramental ritual whenever he paid subsequent visits to Bethany. When he returned home, he told all this to his mother. She was shocked at first but came gradually to see his viewpoint; nevertheless, she was greatly relieved when Jesus assured her that he did not intend to introduce this new idea of the Passover in their family. At home with the children he continued, year by year, to eat the Passover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127:6.8 (1404.7) It was during this year that Mary had a long talk with Jesus about marriage. She frankly asked him if he would get married if he were free from his family responsibilities. Jesus explained to her that, since immediate duty forbade his marriage, he had given the subject little thought. He expressed himself as doubting that he would ever enter the marriage state; he said that all such things must await “my hour,” the time when “my Father’s work must begin.” Having settled already in his mind that he was not to become the father of children in the flesh, he gave very little thought to the subject of human marriage.

127:6.9 (1405.1) This year he began anew the task of further weaving his mortal and divine natures into a simple and effective *human individuality*. And he continued to grow in moral status and spiritual understanding.

127:6.10 (1405.2) Although all their Nazareth property (except their home) was gone, this year they received a little financial help from the sale of an equity in a piece of property in Capernaum. This was the last of Joseph’s entire estate. This real estate deal in Capernaum was with a boatbuilder named Zebedee.

127:6.11 (1405.3) Joseph graduated at the synagogue school this year and prepared to begin work at the small bench in the home carpenter shop. Although the estate of their father was exhausted, there were prospects that they would successfully fight off poverty since three of them were now regularly at work.

127:6.12 (1405.4) Jesus is rapidly becoming a man, not just a young man but an adult. He has learned well to bear responsibility. He knows how to carry on in the face of disappointment. He bears up bravely when his plans are thwarted and his purposes temporarily defeated. He has learned how to be fair and just even in the face of injustice. He is learning how to adjust his ideals of spiritual living to the practical demands of earthly existence. He is learning how to plan for the achievement of a higher and distant goal of idealism while he toils earnestly for the attainment of a nearer and immediate goal of necessity. He is steadily acquiring the art of adjusting his

다. 그는 인간 상황의 평범한 요구들에게 자신의 큰 뜻을 맞추어 가는 기법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영적 충동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질적인 성취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기능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터득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실존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서히 배워갔다. 그의 육신적인 가족에 속한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안내에 더욱 더 의존하였다. 그는 실패의 문턱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숙달되게 되었다; 시간의 곤경으로부터 영원한 세계의 승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갔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해 가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살고 있는 필사 육신들이 영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의 젊은이는 일생을 계속 체험해 나갔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충분하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충만한 일생을 살았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의 창조체들의 첫 번째 일생, 육신 속에서의 짧고도 격렬한 일생을 통과하면서 겪은 체험이 원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체험 전체는 우주 주권자에게 영원히 간직되었다. 그는 우리를 납득하는 형제이며, 동정심 많은 친구이고, 체험이 많은 주권자이며, 자비로운 아버지다.

그는 어린아이 때에 광대한 지식을 쌓았다; 청년기 때에는 이 정보를 간추리고 분류하고 서로 상관관계 시켰다; 이제 영역의 어른으로서, 네바돈 전체 우주를 통하여, 이 세상과 모든 다른 거주구체들 속에 사는 그의 동료 필사자들을 위하여, 그가 장차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이러한 정신적인 소유물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의 아기로 태어난 후에, 그는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소년기와 청년기 단계를 지나왔으며; 그는 이제는 삶의 풍부한 체험을 소유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그것의 나약함에 대한 많은 동정심을 가진, 충만한 어른이 되는 문턱에 와 있었다. 그는 모든 세대와 모든 단계의 필사 창조체들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계시하는 신성한 기술에 있어서 숙련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충만하게-성장한 한 사람으로서—영역의 한 어른—, 그는 필사자들에게는 하느님을 계시하고, 그리고 필사자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자신의 최극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

aspirations to the commonplace demands of the human occasion. He has very nearly mastered the technique of utilizing the energy of the spiritual drive to turn the mechanism of material achievement. He is slowly learning how to live the heavenly life while he continues on with the earthly existence. More and more he depends upon the ultimate guidance of his heavenly Father while he assumes the fatherly role of guiding and directing the children of his earth family. He is becoming experienced in the skillful wresting of victory from the very jaws of defeat; he is learning how to transform the difficulties of time into the triumphs of eternity.

127:6.13 (1405.5) And so, as the years pass, this young man of Nazareth continues to experience life as it is lived in mortal flesh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He lives a full, representative, and replete life on Urantia. He left this world ripe in the experience which his creatures pass through during the short and strenuous years of their first life, the life in the flesh. And all this human experience is an eternal possession of the Universe Sovereign. He is our understanding brother, sympathetic friend, experienced sovereign, and merciful father.

127:6.14 (1405.6) As a child he accumulated a vast body of knowledge; as a youth he sorted, classified, and correlated this information; and now as a man of the realm he begins to organize these mental possessions preparatory to utilization in his subsequent teaching, ministry, and service in behalf of his fellow mortals on this world and on all other spheres of habitation throughout the entire universe of Nebadon.

127:6.15 (1405.7) Born into the world a babe of the realm, he has lived his childhood life and passed through the successive stages of youth and young manhood; he now stands on the threshold of full manhood, rich in the experience of human living, replete in the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full of sympathy for the frailties of human nature. He is becoming expert in the divine art of revealing his Paradise Father to all ages and stages of mortal creatures.

127:6.16 (1406.1) And now as a full-grown man — an adult of the realm — he prepares to continue his supreme mission of revealing God to men and leading men to God.

제 128 편 예수의 성년기 초기

⇨ 127

유란시아 책

12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8 편 예수의 성년기 초기

색션

소개

- 제 1 장. 21살 되던 해 (서기 15년)
 제 2 장. 22살 되던 해 (서기 16년)
 제 3 장. 23살 되던 해 (서기 17년)
 제 4 장. 다마스쿠스 에피소드
 제 5 장. 24살 되던 해 (서기 18년)
 제 6 장. 25살 되던 해 (서기 19년)
 제 7 장. 26살 되던 해 (서기 20년)

PAPER 128

JESUS' EARLY MANHOOD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wenty-First Year (A.D. 15)
2. The Twenty-Second Year (A.D. 16)
3. The Twenty-Third Year (A.D. 17)
4. The Damascus Episode
5. The Twenty-Fourth Year (A.D. 18)
6. The Twenty-Fifth Year (A.D. 19)
7. The Twenty-Sixth Year (A.D. 20)

소개

나사렛 예수는 성년기 일생을 시작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 일생을 계속 살았었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왔고; 자기 부모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일곱 번째의 마지막 증여, 필사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위한 행성으로서 이 특정한 세상을 골랐던 것뿐이었고, 다만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태어났으며, 이 세상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세계들 속에 살고 있는 필사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이 주변 환경의 변천과 씨름하면서 한 아이로 자라났던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행해진 미가엘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1. 필사자의 육체 속에서 한 창조체 인간의 전 일생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 네바돈에서 그의 주권을 성취하는 것.

2.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거주자들에게 우주 아버지를 계시하고 우주 아버지를 더욱 잘 납득하도록 동일한 이 필사자들을 좀 더 효력 있게 인도하는 것.

INTRODUCTION

128:0.1 (1407.1) AS JESUS of Nazareth entered upon the early years of his adult life, he had lived, and continued to live, a normal and average human life on earth. Jesus came into this world just as other children come; he had nothing to do with selecting his parents. He did choose this particular world as the planet whereon to carry out his seventh and final bestowal, his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but otherwise he entered the world in a natural manner, growing up as a child of the realm and wrestling with the vicissitudes of his environment just as do other mortals on this and on similar worlds.

128:0.2 (1407.2) Always be mindful of the twofold purpose of Michael's bestowal on Urantia:

128:0.3 (1407.3) 1. The mastering of the experience of living the full life of a human creature in mortal flesh, the completion of his sovereignty in Nebadon.

128:0.4 (1407.4) 2. The revelation of the Universal Father to the mortal dweller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nd the more effective leading of these same mortal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다른 모든 창조체 은총들과 우주 이점(利點)들은, 필사자 증여의 이들 주요 목적들에게는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2차적인 것들이었다.

제 1 장. 21살 되던 해 (서기 15년)

어른이 되면서부터, 예수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자아-의식을 갖고, 지능 창조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형태인 자신의 일생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체험을 완성하여, 그로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의 자아-창조된 우주에 대한 분별불가적 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원적(二元的) 본성을 충분히 깨닫기 위한 이 엄청난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효과적으로 이 두 가지 본성을 하나—나사렛 예수—로 병합시켰던 것이다.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사람이고, 필사 사람이며, 여자에게서 태어났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첫 번째 칭호로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던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정말 피와 살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지금도 통치 권한을 가지고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면서, 스스로 획득하였던 수많은 호칭들 중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우주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창조자 아들—이 “육신이 되어 유란시아 세계의 한 사람으로 거하였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는 노동을 하였고 피곤함을 느꼈으며 휴식을 취했고 잠을 잤다. 그는 배고픔을 알았고 음식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다; 그는 갈증을 느꼈고 물을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해결하였다. 그는 인간의 느낌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체험하였다; “너희와 똑같이, 모든 것에 대해 시험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으며 죽음을 체험하였다.

그는 영역에 있는 다른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식을 얻었고, 체험을 습득하였으며, 이것들을 지혜 속에 병합시켰다. 그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떤 초자연적 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한 아들로 증여된 자신의 인간 자질이 아닌 그 어떤 매개자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전 실존으로서의 속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는 대중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아-제한시켰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사람이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언제까지나 빛나는 진리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높은 통치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신 주권자가 계시는데,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고 시험 당하였기 때문에, 혼란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보살피신다.

Universal Father.

128:0.5 (1407.5) All other creature benefits and universe advantages were incidental and secondary to these major purposes of the mortal bestowal.

1. THE TWENTY-FIRST YEAR (A.D. 15)

128:1.1 (1407.4) With the attainment of adult years Jesus began in earnest and with full self-consciousness the task of completing the experience of mastering the knowledge of the life of his lowest form of intelligent creatures, thereby finally and fully earning the right of unqualified rulership of his self-created universe. He entered upon this stupendous task fully realizing his dual nature. But he had already effectively combined these two natures into one — Jesus of Nazareth.

128:1.2 (1407.5) Joshua ben Joseph knew full well that he was a man, a mortal man, born of woman. This is shown in the selection of his first title, the *Son of Man*. He was truly a partaker of flesh and blood, and even now, as he presides in sovereign authority over the destinies of a universe, he still bears among his numerous well-earned titles that of Son of Man. It is literally true that the creative Word — the Creator Son — of the Universal Father was “made flesh and dwelt as a man of the realm on Urantia.” He labored, grew weary, rested, and slept. He hungered and satisfied such cravings with food; he thirsted and quenched his thirst with water. He experienced the full gamut of human feelings and emotions; he was “in all things tested, even as you are,” and he suffered and died.

128:1.3 (1407.6) He obtained knowledge, gained experience, and combined these into wisdom, just as do other mortals of the realm. Until after his baptism he availed himself of no supernatural power. He employed no agency not a part of his human endowment as a son of Joseph and Mary.

128:1.4 (1408.1) As to the attributes of his prehuman existence, he emptied himself. Prior to the beginning of his public work his knowledge of men and events was wholly self-limited. He was a true man among men.

128:1.5 (1408.2) It is forever and gloriously true: “We have a high ruler who can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We have a Sovereign who was in all points tested and tempted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And since he himself has suffered, being tested and tried, he is abundantly able to understand and minister to those who are confused and distressed.

나사렛 목수는 이제 자신 앞에 놓인 임무를 충분히 납득하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을 따라서 자신의 인간 일생을 살기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그는 참으로 자신이 창조한 필사자 창조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는 하느님의 속성을 갖추 존재하시고 하느님과 동등 되게 생각함이 당연 하지만 자신을 비워서 창조체의 형상을 취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는 인간 가족을 이루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필사자 일생을 살았으며, 그는 “육체 속에 있던 시절 동안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 그토록 자주 기도와 탄원을 드렸고, 심지어는 통렬한 감정과 눈물로 하였으며,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기도는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처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롭고도 납득하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고; 그것은 자아-명백하게 그리고 항상 그의 의식 안에 존재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었으며, 적어도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는 그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신성에 대한 자아-실현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고, 또한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적인 계시였다. 신성에 대한 이러한 계시와 자아-실현은, 그가 13세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의 인간 실존에서의 첫 번째로 발생한 초자연적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서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이 체험은 그가 육체로 있을 때 두 번째 초자연적 체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 곧 사명활동과 가르침의 그의 공생애의 시작을 표시했던 사건, 그 에피소드가 있었을 때 완성되었다.

하늘로부터의 이 두 가지 방문들, 첫 번째는 13살 되던 해에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세례를 받는 날에 발생했던 이 두 사건 중간에는,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자 아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아기 때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나사렛의 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실체 안에서 항상 육신화된 우주의 창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간 일생의 삶에서, 한 번도 천상의 개인성들의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수호 세라핌천사의 안내는 예외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육체를 입고 있던 그 모든 날 동안, 그는 진실로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실제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한 창조자 아들이었다. 일단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뒤이어 일어나는 주권 획득에서의 그의 순전히 필사자로

128:1.6 (1408.3) The Nazareth carpenter now fully understood the work before him, but he chose to live his human life in the channel of its natural flowing. And in some of these matters he is indeed an example to his mortal creatures, even as it is recorded: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of the nature of God, thought it not strange to be equal with God. But he made himself to be of little import and, taking upon himself the form of a creature, was born in the likeness of mankind. And being thus fashioned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128:1.7 (1408.4) He lived his mortal life just as all others of the human family may live theirs, “who in the days of the flesh so frequently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even with strong feelings and tears, to Him who is able to save from all evil, and his prayers were effective because he believed.” Wherefore it behooved him *in every respect* to be made like his brethren that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understanding sovereign ruler over them.

128:1.8 (1408.5) Of his human nature he was never in doubt; it was self-evident and always present in his consciousness. But of his divine nature there was always room for doubt and conjecture, at least this was true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baptism. The self-realization of divinity was a slow and, from the human standpoint, a natural evolutionary revelation. This revelation and self-realization of divinity began in Jerusalem when he was not quite thirteen years old with the first supernatural occurrence of his human existence; and this experience of effecting the self-realization of his divine nat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of his second supernatural experience while in the flesh, the episode attendant upon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which event marked the beginning of his public career of ministry and teaching.

128:1.9 (1408.6) Between these two celestial visitations, one in his thirteenth year and the other at his baptism, there occurred nothing supernatural or superhuman in the life of this incarnated Creator Son. Notwithstanding this, the babe of Bethlehem, the lad, youth, and man of Nazareth, was in reality the incarnated Creator of a universe; but he never once used aught of this power, nor did he utilize the guidance of celestial personalities, aside from that of his guardian seraphim, in the living of his human life up to the day of his baptism by John. And we who thus testify know whereof we speak.

128:1.10 (1408.7) And yet, throughout all these years of his life in the flesh he was truly divine. He was actually a Creator Son of the Paradise Father. When once he had espoused his public career, subsequent to the technical completion of his

서의 체험이 절차에 따른 완성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대중 앞에서 시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단호히 선언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다.” 그는 훗날 그에게 붙여졌던 다음과 같은 이름들, 영광의 주님,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느님, 모든 세계들과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을 가지신 분, 우주 전능자, 이 창조계의 우주 마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을 감추고 계신 분, 만유를 채우시는 그 분의 충만함, 영원한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 만유 이전에 계셨고 만유 속에 계신 분, 하늘들과 땅의 창조자, 우주의 유지자,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참 목자, 세상의 해방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가 그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성으로, 그리고 인간성을 위한, 그리고 이 땅의 인간성과 다른 모든 세계의 인간성에 대한 신성의 사명활동을 그가 자아-의식하는 후기로 접어들게 된 이후가 되었어도, 그에게 적용된 이 칭호들 중 어떤 것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는데: 한 번은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렸을 때, 그는 단지 “나는 그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형님의 이름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땅에서의 더욱 커진 일생 안으로 그의 창발이 나타난 이후에도, 예수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온순하게 따랐다.

세례를 받은 뒤에도, 그는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기꺼이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허락할만한 그 어떤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가난과 씨름하고 그의 가족의 생활의 필수품을 마련하려고 손으로 애써 일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그의 자각은 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들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만든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우주에 두루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사람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권자이며 창조자-아버지임을 알고 있었다. 심오한 긴장감이 이들 여러 해 동안 계속 네바돈 우주를 휩쓸고 있었다; 모든 천상의 눈들이 유란시아의 팔레스타인에 줄곧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해에, 예수는 둘째 동생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는 헌납식을 위해 야고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요셉을 데려가는 것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가족을 돌보는데 있어서,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항상 다니던 요단 계곡의 길을 따라 갔으나,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투스를 지나가는 요단 지역

purely mortal experience of sovereignty acquirement, he did not hesitate publicly to admit that he was the Son of God. He did not hesitate to declare,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 He made no protest in later years when he was called Lord of Glory, Ruler of a Universe, the Lord God of all creation, the Holy One of Israel, the Lord of all, our Lord and our God, God with us, having a name above every name and on all worlds, the Omnipotence of a universe, the Universe Mind of this creation, the One in whom are hid all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things, the eternal Word of the eternal God, the One who was before all things and in whom all things consist,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Upholder of a universe, the Judge of all the earth, the Giver of life eternal, the True Shepherd, the Deliverer of the worlds, and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128:1.11 (1409.1) He never objected to any of these titles as they were applied to him subsequent to the emergence from his purely human life into the later years of his self-consciousness of the ministry of divinity in humanity, and for humanity, and to humanity on this world and for all other worlds. Jesus objected to but one title as applied to him: When he was once called Immanuel, he merely replied, “Not I, that is my elder brother.”

128:1.12 (1409.2) Always, even after his emergence into the larger life on earth, Jesus was submissively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28:1.13 (1409.3) After his baptism he thought nothing of permitting his sincere believers and grateful followers to worship him. Even while he wrestled with poverty and toiled with his hands to provide the necessities of life for his family, his awareness that he was a Son of God was growing; he knew that he was the maker of the heavens and this very earth whereon he was now living out his human existence. And the hosts of celestial beings throughout the great and onlooking universe likewise knew that this man of Nazareth was their beloved Sovereign and Creator-father. A profound suspense pervaded the universe of Nebadon throughout these years; all celestial eyes were continuously focused on Urantia — on Palestine.

128:1.14 (1409.4) This year Jesus went up to Jerusalem with Joseph to celebrate the Passover. Having taken James to the temple for consecration, he deemed it his duty to take Joseph. Jesus never exhibited any degree of partiality in dealing with his family. He went with Joseph to Jerusalem by the usual Jordan valley route, but he returned to Nazareth by the east Jordan way, which led through Amathus. Going

의 동쪽 길을 택하였다. 요단을 내려가는 동안 예수는 요셉에게 유대의 역사를 말해 주었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통적으로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루벤, 갓, 그리고 길르앗 등으로 불리는 족속들이 겪은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요셉은 예수에게 그의 일생 임무에 관해서 유도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들 대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단지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쨌든, 이 친밀한 대화 속에서 많은 말들이 흘러 나왔었는데, 요셉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여러 해 동안 그것들을 기억하였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념 축제들에 참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요셉을 데리고 베다니의 세 친구와 함께 그 유월절을 보냈다.

제 2 장. 22살 되던 해 (서기 16년)

그 해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과 고난들을 맞이했던 여러 해들 중의 한 해였으며, 이번에는 특별히 청소년기의 문제들 그리고 재조절들로 인한 것이었다.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은 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까지 걸쳐 있었으며, 그는 그들이 지적이고 정서적인 삶을 새롭게 자각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느라고 분주하게 보냈다. 청소년기의 그 문제들이 그의 어린 형제자매들의 삶 안에서 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였다.

그 해에 시몬은 학교를 졸업하였고, 예수의 오랜 친구이자 언제나 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석공 야곱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모든 형제들이 목수가 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다양화시킴으로서 건물 전체를 짓는 여러 개의 청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세 명이 모두 목수 일에 매달리게 되면서, 모두가 바쁘게 일할 만큼의 충분한 일거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해에 예수는 집 마무리 작업과 장롱을 짜는 일을 계속했으나, 카라반들을 위한 수리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와 번갈아 그 가게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 해 후반기에, 나사렛에서 목수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자, 예수는 야고보에게 수리점을 맡겼고, 요셉에게는 집안 일을 맡기면서, 자신은 세포리로 가서 대장간 일을 하였다. 그는 여섯 달 동안 쇳덩이들과 씨름하면서 모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세포리에서 새 직업을 갖기 전에, 예수는 정기적으로 하는 가족회의를 열었고, 18세가 막 지난 야고보를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면서 식구들 각자가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였다. 그 날부터 야고보는 가족에 대한 재정을 전담하게 되었고, 예수는 자신의 주급을 야고보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down the Jordan, Jesus narrated Jewish history to Joseph and on the return trip told him about the experiences of the reputed tribes of Ruben, Gad, and Gilead that traditionally had dwelt in these regions east of the river.

128:1.15 (1409.5) Joseph asked Jesus many leading questions concerning his life mission, but to most of these inquiries Jesus would only reply, “My hour has not yet come.” However, in these intimate discussions many words were dropped which Joseph remembered during the stirring events of subsequent years. Jesus, with Joseph, spent this Passover with his three friends at Bethany, as was his custom when in Jerusalem attending these festival commemorations.

2. THE TWENTY-SECOND YEAR (A.D. 16)

128:2.1 (1409.6) This was one of several years during which Jesus' brothers and sisters were facing the trials and tribulations peculiar to the problems and readjustments of adolescence. Jesus now had brothers and sisters ranging in ages from seven to eighteen, and he was kept busy helping them to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awakenings of their intellectual and emotional lives. He had thus to grapple with the problems of adolescence as they became manifest in the lives of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128:2.2 (1410.1) This year Simon graduated from school and began work with Jesus' old boyhood playmate and ever-ready defender, Jacob the stone mason. As a result of several family conferences it was decided that it was unwise for all the boys to take up carpentry. It was thought that by diversifying their trades they would be prepared to take contracts for putting up entire buildings. Again, they had not all kept busy since three of them had been working as full-time carpenters.

128:2.3 (1410.2) Jesus continued this year at house finishing and cabinetwork but spent most of his time at the caravan repair shop. James was beginning to alternate with him in attendance at the shop. The latter part of this year, when carpenter work was slack about Nazareth, Jesus left James in charge of the repair shop and Joseph at the home bench while he went over to Sepphoris to work with a smith. He worked six months with metals and acquired considerable skill at the anvil.

128:2.4 (1410.3) Before taking up his new employment at Sepphoris, Jesus held one of his periodic family conferences and solemnly installed James, then just past eighteen years old, as acting head of the family. He promised his brother hearty support and full co-operation and exacted formal promises of obedience to James from each member of the family. From this day James assumed full financial

후로 다시는 그 권한을 야고보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 세포리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매일 밤 집으로 걸어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날씨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잠된 동기는 야고보와 요셉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그의 의도 때문이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매주 안식일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며, 때때로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거나 충고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중에도 집에 들렀다.

세포리에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는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갖는 관점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잘 제공받았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였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故鄉)인 이 도시(都市)의 도덕적 수준이 카라반들의 도시인 나사렛보다도 훨씬 낮았기 때문에, 예수는 6개월 동안 세포리에 머문 뒤 나사렛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함께 일했던 그 집단들은 세포리 그리고 티베리아스의 새 도시 두 곳에서 벌어진 공공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독 아래에 고용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지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그가 (나사렛에 있는) 수리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시는 가족들의 관련사에 대해서 개인적 지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서 야고보와 관계적-연합하여 일하였고, 가능한 한 그가 집안의 전반적인 감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야고보의 경영과 가게 예산에서의 그의 관리-행정은 전혀 간섭받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 가족들의 관련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결국 생겨나는 사퇴를 위한 길을 준비한 것은 현명하고도 사려 깊은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야고보가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서 2년간의 체함을 쌓은 뒤에—그리고 그가(야고보) 결혼하기 꼭 2년 전에—, 요셉이 그 뒤를 이어서 가족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게 되었고 가정의 제반 경영을 맡게 되었다.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Jesus making his weekly payments to his brother. Never again did Jesus take the reins out of James's hands. While working at Sepphoris he could have walked home every night if necessary, but he purposely remained away, assigning weather and other reasons, but his true motive was to train James and Joseph in the bearing of the family responsibility. He had begun the slow process of weaning his family. Each Sabbath Jesus returned to Nazareth, and sometimes during the week when occasion required, to observe the working of the new plan, to give advice and offer helpful suggestions.

128:2.5 (1410.4) Living much of the time in Sepphoris for six months afforded Jesus a new opportunity to become better acquainted with the gentile viewpoint of life. He worked with gentiles, lived with gentiles, and in every possible manner did he make a close and painstaking study of their habits of living and of the gentile mind.

128:2.6 (1410.5) The moral standards of this home city of Herod Antipas were so far below those of even the caravan city of Nazareth that after six months' sojourn at Sepphoris Jesus was not averse to finding an excuse for returning to Nazareth. The group he worked for were to become engaged on public work in both Sepphoris and the new city of Tiberias, and Jesus was disinclin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any sort of employ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Herod Antipas. And there were still other reasons which made it wise, in the opinion of Jesus, for him to go back to Nazareth. When he returned to the repair shop, he did not again assume the personal direction of family affairs. He worked in association with James at the shop and as far as possible permitted him to continue oversight of the home. James's management of family expenditures and his administration of the home budget were undisturbed.

128:2.7 (1410.6) It was by just such wise and thoughtful planning that Jesus prepared the way for his eventual withdrawal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his family. When James had had two years' experience as acting head of the family — and two full years before he (James) was to be married — Joseph was placed in charge of the household funds and intrusted with the general management of the home.

제 3 장. 23살 되던 해 (서기 17년)

그 해에는 네 명이 일을 하였고 때문이,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이완되었다. 미리암은 우유와 버터를 팔아서 제법 돈을 벌었고, 마르다는 능숙하게 직조(織造)할 수 있게 되었다. 수리점의 전체 구입비용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불되었다. 그

3. THE TWENTY-THIRD YEAR (A.D. 17)

128:3.1 (1411.1) This year the financial pressure was slightly relaxed as four were at work. Miriam earned considerable by the sale of milk and butter; Martha had become an expert weaver. The purchase price of the repair shop was over one

런 상황 중에 예수는 3주 동안 일을 쉬면서 시몬을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그가 일상적인 힘든 일로부터 떠나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었다.

그들은 데카폴리스를 경유하여 펠라, 게라사, 필라델피아, 헤스본, 그리고 예리코 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해안선을 따라왔는데, 리다, 요파, 케자리아 등을 지난 후 갈멜산을 돌아 프톨레마이스를 거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여행을 통해 예수는 예루살렘 관할의 팔레스타인 북부 전체 지역을 잘 알게 되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예수와 시몬은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상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 나사렛 청년들을 매우 좋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숙소와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시몬이 성전에 있는 동안, 예수는 고등-교육을 받고 세계 각처의 관련사들로 많은 여행을 한 그 상인과 함께 시간 이야기를 하였다. 이 상인은 4천 마리의 카라반 낙타를 소유하고 있었다; 로마 권역 전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때에도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예수에게 다마스쿠스에 와서 동방의 상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예수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지금 당장 멀리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먼 곳에 있는 이 도시들과 더 멀리 극서(極西) 그리고 극동(極東)에 있는 나라들, 카라반 여행객들과 지휘-안내자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던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는 율법의 새 아들들에 대한 유월절 헌납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식 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시몬이 유월절 의식에 참가하는 동안 예수는 방문객들의 군중 속에 섞여 있었고, 여러 이방인 개종자들과 흥미로운 많은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모든 만남들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스테반이라는 한 젊은 그리스인을 만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으며, 유월절 주간의 목요일 오후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아스모니아의 궁전을 구경하면서 함께 걷는 동안, 예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삶의 방식과 참된 하느님 그리고 자신의 경배 방법에 대해서 네 시간 동안이나 토론하게 되었다. 스테반은 예수가 하는 말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의 말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자가 된 바로 그 스테반이었고 그리고 이 초기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보여준 그의 대담성은 성난 유대인들이 그의 존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복음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스테반이 비상하게 대담하였

third paid. The situation was such that Jesus stopped work for three weeks to take Simon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longest period away from daily toil he had enjoyed since the death of his father.

128:3.2 (1411.2) They journeyed to Jerusalem by way of the Decapolis and through Pella, Gerasa, Philadelphia, Heshbon, and Jericho. They returned to Nazareth by the coast route, touching Lydda, Joppa, Caesarea, thence around Mount Carmel to Ptolemais and Nazareth. This trip fairly well acquainted Jesus with the whole of Palestine north of the Jerusalem district.

128:3.3 (1411.3) At Philadelphia Jesus and Simon became acquainted with a merchant from Damascus who developed such a great liking for the Nazareth couple that he insisted they stop with him at his Jerusalem headquarters. While Simon gave attendance at the temple, Jesus spent much of his time talking with this well-educated and much-traveled man of world affairs. This merchant owned over four thousand caravan camels; he had interests all over the Roman world and was now on his way to Rome. He proposed that Jesus come to Damascus to enter his Oriental import business, but Jesus explained that he did not feel justified in going so far away from his family just then. But on the way back home he thought much about these distant cities and the even more remote countries of the Far West and the Far East, countries he had so frequently heard spoken of by the caravan passengers and conductors.

128:3.4 (1411.4) Simon greatly enjoyed his visit to Jerusalem. He was duly received into the commonwealth of Israel at the Passover consecration of the new sons of the commandment. While Simon attended the Passover ceremonies, Jesus mingled with the throngs of visitors and engaged in many interesting personal conferences with numerous gentile proselytes.

128:3.5 (1411.5) Perhaps the most notable of all these contacts was the one with a young Hellenist named Stephen. This young man was on his first visit to Jerusalem and chanced to meet Jesus on Thursday afternoon of Passover week. While they both strolled about viewing the Asmonean palace, Jesus began the casual conversation that resulted in their becoming interested in each other, and which led to a four-hour discussion of the way of life and the true God and his worship. Stephen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what Jesus said; he never forgot his words.

128:3.6 (1411.6) And this was the same Stephen who subsequently became a believer in the teachings of Jesus, and whose boldness in preaching this early gospel resulted in his being stoned to death by irate Jews. Some of Stephen's extraordinary boldness in proclaiming his view of the new gospel

던 것은, 이전에 가졌던 예수와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스테반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이 나중에 주장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에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느 갈릴리 남자였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그는 얼마 못 가서 그를 위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진화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스테반이 유대인의 성전과 그 전통적 실천 관행에 대한 공격의 대가(代價)로 자기 생명을 바쳤을 때, 그곳에는 타루수스의 시민이자 사울이라 불리는 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이 그리스인이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 올랐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스테반이 목숨을 바친 그 동기를 신봉하도록 이끌었다; 후일에 그는 적극적이고 굴하지 않는 바울, 비록 유일하게 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의 설립자, 철학자가 되었다.

유월절 주간이 끝난 일요일에, 시몬과 예수는 나사렛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시몬은 예수가 이 여행에서 자기에게 가르친 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전에도 항상 예수를 사랑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아버지-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통하는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다. 그들은 목요일 정오에 집에 도착하였고 시몬은 늦은 밤까지 자신의 체험담을 가족들에게 늘어놓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낯선 방문자, 특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보냈다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예수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관심,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내려는 강한 호기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나사렛의 가족은 그들의 눈앞에 막힌 인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몰두하였으며, 예수의 장래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고, 예수 자신도 자기의 장래 임무에 대해 어떤 말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약속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신성한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관념을 서서히 포기해 나갔지만, 자기가 예수를 낳기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 왔던 일을 상기할 때에는 그녀의 신앙이 때때로 되살아났다.

제 4 장. 다마스쿠스 에피소드

예수는 그 해 마지막 4개월을 다마스쿠스에서 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상인의 손님으로 초청되어 있었다. 이 상인의 대리인이 나사렛을 지나가다가 예수를 찾아내어 그를 다마스쿠스에까지 수행하였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 상인은, 다마스쿠스에 종교적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

was the direct result of this earlier interview with Jesus. But Stephen never even faintly surmised that the Galilean he had talked with some fifteen years previously was the very same person whom he later proclaimed the world's Savior, and for whom he was so soon to die, thus becoming the first martyr of the newly evolving Christian faith. When Stephen yielded up his life as the price of his attack upon the Jewish temple and its traditional practices, there stood by one named Saul, a citizen of Tarsus. And when Saul saw how this Greek could die for his faith, there were aroused in his heart those emotions which eventually led him to espouse the cause for which Stephen died; later on he became the aggressive and indomitable Paul, the philosopher, if not the sole founder, of the Christian religion.

128:3.7 (1412.1) On the Sunday after Passover week Simon and Jesus started on their way back to Nazareth. Simon never forgot what Jesus taught him on this trip. He had always loved Jesus, but now he felt that he had begun to know his father-brother. They had many heart-to-heart talks as they journeyed through the country and prepared their meals by the wayside. They arrived home Thursday noon, and Simon kept the family up late that night relating his experiences.

128:3.8 (1412.2) Mary was much upset by Simon's report that Jesus spent most of the time when in Jerusalem "visiting with the strangers, especially those from the far countries." Jesus' family never could comprehend his great interest in people, his urge to visit with them, to learn about their way of living, and to find out what they were thinking about.

128:3.9 (1412.3) More and more the Nazareth family became engrossed with their immediate and human problems; not often was mention made of the future mission of Jesus, and very seldom did he himself speak of his future career. His mother rarely thought about his being a child of promise. She was slowly giving up the idea that Jesus was to fulfill any divine mission on earth, yet at times her faith was revived when she paused to recall the Gabriel visitation before the child was born.

4. THE DAMASCUS EPISODE

128:4.1 (1412.4) The last four months of this year Jesus spent in Damascus as the guest of the merchant whom he first met at Philadelphia when on his way to Jerusalem. A representative of this merchant had sought out Jesus when passing through Nazareth and escorted him to Damascus. This part-Jewish merchant proposed to devote an

도록 큰돈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해왔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압도할만한 교육 중심지를 건립할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새로운 이 구체적인 투사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전 세계의 교육 중심지들을 돌아보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하라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순수한 인간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가장 큰 유혹들 중의 하나였다.

얼마 안 있어서, 이 상인은 새로 계획된 학교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12명의 상인들과 물주들로 구성된 집단을 예수 앞에 불러 모았다. 예수는 제시된 학교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현시하였고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 투사에 도움을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지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이미 맡겨진 보다 중요한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야심에 찬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신의 의사를 계속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를 후원하려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조건으로 통역하는 일을 맡기면서 예수를 자기 집에 고용하였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부인과 아들들 그리고 딸들까지 동원하여, 제안된 지위를 예수가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승낙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땅에서의 자기 사명이 교육 기관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적어도 '인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아래 자신을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영도자관계를 실증한 뒤에도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그였지만, 다마스쿠스의 상인들과 물주(物主)들에게서는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받고 환호를 받았으며, 이 모든 일은 그가 눈에 띄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나사렛의 목수였을 때 일어났다.

그는 이런 제안을 받은 데 대하여 자신의 가족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해 말경에, 그는 마치 자기가 다마스쿠스 친구들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유혹을 당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나사렛에 돌아와 매일의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이 사람들은, 전에 자신들의 연관된 재력으로 마련해주려고 하였던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나사렛의 목수를, 훗날 모든 유대 민족을 뒤엎어 놓았던 그 가버나움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사건들이 단일 개별존재의 행위라고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하였다. 예수는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학교를 다마스쿠스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어느 이상한 갈릴리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였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분산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은, 자신에게 다양하고 화려한 생애가 구축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

extraordinary sum of money to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of religious philosophy at Damascus. He planned to create a center of learning which would out-rival Alexandria. And he proposed that Jesus should immediately begin a long tour of the world's educational centers preparatory to becoming the head of this new project. This was one of the greatest temptations that Jesus ever faced in the course of his purely human career.

128:4.2 (1412.5) Presently this merchant brought before Jesus a group of twelve merchants and bankers who agreed to support this newly projected school. Jesus manifested deep interest in the proposed school, helped them plan for its organization, but always expressed the fear that his other and unstated but prior obligations would prevent his accepting the direction of such a pretentious enterprise. His would-be benefactor was persistent, and he profitably employed Jesus at his home doing some translating while he, his wife, and their sons and daughters sought to prevail upon Jesus to accept the proffered honor. But he would not consent. He well knew that his mission on earth was not to be supported by institutions of learning; he knew that he must not obligate himself in the least to be directed by the "councils of men," no matter how well-intentioned.

128:4.3 (1412.6) He who was rejected by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even after he had demonstrated his leadership, was recognized and hailed as a master teacher by the businessmen and bankers of Damascus, and all this when he was an obscure and unknown carpenter of Nazareth.

128:4.4 (1412.7) He never spoke about this offer to his family, and the end of this year found him back in Nazareth going about his daily duties just as if he had never been tempted by the flattering propositions of his Damascus friends. Neither did these men of Damascus ever associate the later citizen of Capernaum who turned all Jewry upside down with the former carpenter of Nazareth who had dared to refuse the honor which their combined wealth might have procured.

128:4.5 (1413.1) Jesus most cleverly and intentionally contrived to detach various episodes of his life so that they never became, in the eyes of the world, associated together as the doings of a single individual. Many times in subsequent years he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is very story of the strange Galilean who declined the opportunity of founding a school in Damascus to compete with Alexandria.

128:4.6 (1413.2) One purpose which Jesus had in mind, when he sought to segregate certain features of his earthly experience, was to prevent the building up of such a versatile and spectacular

며, 그가 삶 속에서 실천하였고 가르쳤던 진리를 후세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스승을 숭배해 버리는 경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하나의 인간적 성공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세상에 선포하는 왕국 복음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자기에 관한 하나의 종교를 형성시키려는 유혹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점을 아주 일찍부터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대신에 스승을 높이 내세우려는 인간 경향에 도움을 줄만한 모든 일들을 억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그가 그의 땅에서의 다채로운 일생에서의 다양한 신(新)시대동안 자신이 많은 다른 명칭으로 알려지도록 내버려두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직한 신념을 떠나서 그를 믿도록 하는, 어떤 과도한 영향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과도하게 또는 부당하게 억이용하는 것을 항상 거부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만일 자신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영적 실체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를 믿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해 말에, 나사렛 가정은 부드럽게 잘 돌아갔다. 아이들은 성숙해가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가 집에서 멀어지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예수는 자신의 수입이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야고보에게 계속 보내 주었으며, 자신의 즉각적인 개인적 비용으로 급히 필요한 작은 부분만 남겨놓았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땅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그 지역의 다른 한 개별존재와 아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되어 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펼쳐져야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

제 5 장. 24살 되던 해 (서기 18년)

그 해는 예수가 가족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첫 해였다. 야고보는 예수의 조언과 경제적 도움을 받아, 가게를 매우 성공적으로 꾸려나갔다.

그 해 유월절 다음 주간에, 한 무리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예수가 팔레스타인 해변 가의 어떤 장소에서 연중(年中)에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추천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어떤 젊은이가 나사렛으로 왔다. 그리하여 이 회합은 6월 중순에 열렸으며, 그 때 예수는 다섯 명의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 케자리아로 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그가 종교적 선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본부 회당의 카잔(선생) 보좌관 지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career as would cause subsequent generations to venerate the teacher in place of obeying the truth which he had lived and taught. Jesus did not want to build up such a human record of achievement as would attract attention from his teaching. Very early he recognized that his followers would be tempted to formulate a religion *about* him which might become a competito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he intended to proclaim to the world. Accordingly, he consistently sought to suppress everything during his eventful career which he thought might be made to serve this natural human tendency to exalt the teacher in place of proclaiming his teachings.

128:4.7 (1413.3) This same motive also explains why he permitted himself to be known by different titles during various epochs of his diversified life on earth. Again, he did not want to bring any undue influence to bear upon his family or others which would lead them to believe in him against their honest convictions. He always refused to take undue or unfair advantage of the human mind. He did not want men to believe in him unless their hearts were responsive to the spiritual realities revealed in his teachings.

128:4.8 (1413.4) By the end of this year the Nazareth home was running fairly smoothly. The children were growing up, and Mary was becoming accustomed to Jesus' being away from home. He continued to turn over his earnings to James for the support of the family, retaining only a small portion for his immediate personal expenses.

128:4.9 (1413.5) As the years passed, it became more difficult to realize that this man was a Son of God on earth. He seemed to become quite like an individual of the realm, just another man among men. And it was ordained by the Father in heaven that the bestowal should unfold in this very way.

5. THE TWENTY-FOURTH YEAR (A.D. 18)

128:5.1 (1413.6) This was Jesus' first year of comparative freedom from family responsibility. James was very successful in managing the home with Jesus' help in counsel and finances.

128:5.2 (1413.7) The week following the Passover of this year a young man from Alexandria came down to Nazareth to arrange for a meeting, later in the year, between Jesus and a group of Alexandrian Jews at some point on the Palestinian coast. This conference was set for the middle of June, and Jesus went over to Caesarea to meet with five prominent Jews of Alexandria, who besought him to establish himself in their city as a religious teacher, offering as an inducement to begin with, the position of assistant to the chazan in their chief synagogue.

이 위원회의 대변인은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대인 문화의 본부가 될 운명임을 예수에게 설명하였다; 유대인 관련사들의 헬레니즘 성향이 바빌로니아 학파를 실질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통틀어 반란의 불길한 소문이 일고 있음을 예수에게 상기시켰으며, 만약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어떤 봉기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며, 로마의 군대가 삼 개월 안에 그 반란을 진압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피력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경청하였고, 그들의 신임에 감사하였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것은 사양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요지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에게 수여하려는 명예에 대해 그가 보인 명백한 무관심에 상당히 당황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헤어지기에 앞서서,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존경의 표시와 또한 케사리아에까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시간과 비용의 대가로써 그에게 돈주머니를 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양하면서, “요셉의 집안은 의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강한 팔을 갖고 있고 또 내 형제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빵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집트에서 온 그의 친구들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몇 년 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로 자라난 그 사람이며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선생으로 오라는 초청을 단호히 거절한 바로 그 이상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해의 나머지 6개월은, 그의 모든 생애에서 가장 평온무사하게 보낸 기간이었다. 그는 극복해야 할 난관들과 풀어야 할 문제들의 일상의 일로부터 벗어난, 이 짧은 기간의 휴식을 보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와 많은 교제를 가졌고 자신의 인간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의 인간의 관련사들은 그리 오랫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12월에, 야고보는 예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나사렛의 젊은 여인 에스더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였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예수는 요셉이 곧 18세가 되며, 그 때는 가족의 활동하는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도 좋은 체험이 되리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래서 예수는 야고보에게 2년 후에 결혼하도록 승낙했으며, 야고보는 예수가 제안했던 대로 요셉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켰다.

128:5.3 (1414.1) The spokesmen for this committee explained to Jesus that Alexandria was destined to become the headquarters of Jewish culture for the entire world; that the Hellenistic trend of Jewish affairs had virtually outdistanced the Babylonian school of thought. They reminded Jesus of the ominous rumblings of rebellion in Jerusalem and throughout Palestine and assured him that any uprising of the Palestinian Jews would be equivalent to national suicide, that the iron hand of Rome would crush the rebellion in three months, and that Jerusalem would be destroyed and the temple demolished, that not one stone would be left upon another.

128:5.4 (1414.2) Jesus listened to all they had to say, thanked them for their confidence, and, in declining to go to Alexandria, in substance said, “My hour has not yet come.” They were nonplused by his apparent indifference to the honor they had sought to confer upon him. Before taking leave of Jesus, they presented him with a purse in token of the esteem of his Alexandrian friends and in compensation for the time and expense of coming over to Caesarea to confer with them. But he likewise refused the money, saying: “The house of Joseph has never received alms, and we cannot eat another’s bread as long as I have strong arms and my brothers can labor.”

128:5.5 (1414.3) His friends from Egypt set sail for home, and in subsequent years, when they heard rumors of the Capernaum boatbuilder who was creating such a commotion in Palestine, few of them surmised that he was the babe of Bethlehem grown up and the same strange-acting Galilean who had so unceremoniously declined the invitation to become a great teacher in Alexandria.

128:5.6 (1414.4) Jesus returned to Nazareth. The remainder of this year was the most uneventful six months of his whole career. He enjoyed this temporary respite from the usual program of problems to solve and difficulties to surmount. He communed much with his Father in heaven and made tremendous progress in the mastery of his human mind.

128:5.7 (1414.5) But human affairs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do not run smoothly for long. In December James had a private talk with Jesus, explaining that he was much in love with Esta, a young woman of Nazareth, and that they would sometime like to be married if it could be arranged.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Joseph would soon be eighteen years old, and that it would be a good experience for him to have a chance to serve as the acting head of the family. Jesus gave consent for James’s marriage two years later, provided he had, during the intervening time, properly trained Joseph to assume direction of the home.

그러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 결혼이 줄을 잇게 되었다. 야고보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를 받아내자, 미리암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격인 오빠에게 털어놓았다. 한때 예수의 자아-임명한 투사였던 젊은 석공 야곱이 이제는 야고보와 요셉의 동반자가 되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미리암을 아내로 얻고 싶어 하였다. 미리암이 그녀의 계획을 예수에게 말하자, 예수는 야곱이 자신에게 그녀에 대한 공식적인 청혼을 하여야만 한다고 지도하였으며, 동생 마르다가 장녀의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그녀가 느끼게 되면 바로 결혼을 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다.

집에 있을 때에는, 예수는 일주일에 세 번씩 야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자주 성서를 읽었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나사렛의 자격을 갖춘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자신을 처신하였다.

제 6 장. 25살 되던 해 (서기 19년)

이 해에는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출발하였고, 마르다가 룯을 돌보아야만 하는 특정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들의 정규 학교 과정의 완결을 목격하였다.

예수는 아담 이후로 지상에 나타난 가장 건강하고 세련된 표본이 될 만한 인간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의 마음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꿰뚫는 정신력—그와 동시대의 평균적인 마음 상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율로 발전된 것 이었다—을 지녔고, 그의 영은 인간 견지에서 볼 때 참으로 신성한 상태였다.

가정의 재정 상태는 요셉의 유산이 사라진 이래로 최상 수준에 이르렀다. 카라반들을 위한 수리점에 대하여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하였고, 그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빚이 없었으며, 근래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여유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예수는 다른 남동생들에게 그들의 첫 유월절 의식을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므로, 유다(그는 막 회당 학교를 졸업했다)의 경우에도 첫 성전 방문을 위해 그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돌아올 때에도 같은 길을 택하였으며, 그것은 예수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유다는 나사렛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일으켰었는데, 그것은 유다가 조급한 기질에다 강렬한 애국적 정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시간에 늦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먼저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광경은 유다의 혼 깊은 곳에까지 자극하였고 흥분을

128:5.8 (1414.6) And now things began to happen — marriage was in the air. James's success in gaining Jesus' assent to his marriage emboldened Miriam to approach her brother-father with her plans. Jacob, the younger stone mason, onetime self-appointed champion of Jesus, now business associate of James and Joseph, had long sought to gain Miriam's hand in marriage. After Miriam had laid her plans before Jesus, he directed that Jacob should come to him making formal request for her and promised his blessing for the marriage just as soon as she felt that Martha was competent to assume her duties as eldest daughter.

128:5.9 (1414.7) When at home, he continued to teach the evening school three times a week, read the Scriptures often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visited with his mother, taught the children, and in general conducted himself as a worthy and respected citizen of Nazareth in the commonwealth of Israel.

6. THE TWENTY-FIFTH YEAR (A.D. 19)

128:6.1 (1415.1) This year began with the Nazareth family all in good health and witnessed the finishing of the regular schooling of all the children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work which Martha must do for Ruth.

128:6.2 (1415.2) Jesus was one of the most robust and refined specimens of manhood to appear on earth since the days of Adam. His physical development was superb. His mind was active, keen, and penetrating — compared with the average mentality of his contemporaries, it had developed gigantic proportions — and his spirit was indeed humanly divine.

128:6.3 (1415.3) The family finances were in the best condition since the disappearance of Joseph's estate. The final payments had been made on the caravan repair shop; they owed no man and for the first time in years had some funds ahead. This being true, and since he had taken his other brothers to Jerusalem for their first Passover ceremonies, Jesus decided to accompany Jude (who had just graduated from the synagogue school) on his first visit to the temple.

128:6.4 (1415.4) They went up to Jerusalem and returned by the same route, the Jordan valley, as Jesus feared trouble if he took his young brother through Samaria. Already at Nazareth Jude had got into slight trouble several times because of his hasty disposition, coupled with his strong patriotic sentiments.

128:6.5 (1415.5) They arrived at Jerusalem in due time and were on their way for a first visit to the temple, the very sight of which had stirred and thrilled Jude

느끼게 하였는데, 그때 그들은 우연히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를 나누며 유월절 축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그들 모두에게 실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로마 군위병이 서 있었는데, 그는 지나가는 한 유대인 소녀에게 부적절한 혼평을 하였다. 유다는 불같은 분개심으로 상기되어 참지 못하고 그 병사가 들릴만한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적절성으로 인한 그의 울분을 터트렸다.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의 사소한 비방에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군위병은 즉시 유다를 체포하였다. 이것은 그 어린 애국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며, 예수가 경고의 눈빛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전에, 그는 이미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찬 말을 한바탕 떠들어 버려서 일을 악화시켰다. 유다는 그 즉시로 집단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가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예수는 유다를 위해서 바로, 아니면 적어도 그 날 저녁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호소를 할 기회를 가지도록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한 유대인을 위해 재판을 개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둘째 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으며, 예수도 그와 함께 감옥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충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아들들이 되는 성전에서의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유다는 열심당을 대표하여,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매우 열심히 활약한 그 애국 단체를 대표하여 선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있게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이 공식적인 의식을 거치지 않았다.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은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하여 군인 법무관(法務官) 앞에 나아갔다. 그는 동생이 나이 어린 것을 사과하고, 이어진 설명이지만 자신의 동생이 체포되도록 이끈 이 에피소드의 도발적인 본성을 사려 깊은 말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서 그 사례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 법무관도 그 젊은 유대인이 사납게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면서 그를 용서할 뜻을 비쳤다. 그리하여 유다에게 다시 그와 같은 경솔한 것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뒤, 퇴장을 명령하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저 젊은이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당신들 모두에게 많은 문젯거리를 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 로마 법무관의 말은 사실이였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문젯거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성질의 문제—지각없고 무분별한 애국심의 폭발로 인한 행정 당국과의 충돌—였다.

예수와 유다는 그날 밤을 지내기 위해 베다니로 갔으며, 자신들이 유월절 만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설명하였고, 다음 날 나사렛을 향하여 떠났다. 예수는 가족들에게 그의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to the very depths of his soul, when they chanced to meet Lazarus of Bethany. While Jesus talked with Lazarus and sought to arrange for their joint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ude started up real trouble for them all. Close at hand stood a Roman guard who made some improper remarks regarding a Jewish girl who was passing. Jude flushed with fiery indignation and was not slow in expressing his resentment of such an impropriety directly to and within hearing of the soldier. Now the Roman legionnaires were very sensitive to anything bordering on Jewish disrespect; so the guard promptly placed Jude under arrest. This was too much for the young patriot, and before Jesus could caution him by a warning glance, he had delivered himself of a voluble denunciation of pent-up anti-Roman feelings, all of which only made a bad matter worse. Jude, with Jesus by his side, was taken at once to the military prison.

128:6.6 (1415.6) Jesus endeavored to obtain either an immediate hearing for Jude or else his release in time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that evening, but he failed in these attempts. Since the next day was a “holy convocation” in Jerusalem, even the Romans would not presume to hear charges against a Jew. Accordingly, Jude remained in confinement until the morning of the second day after his arrest, and Jesus stayed at the prison with him. They were not present in the temple at the ceremony of receiving the sons of the law into the full citizenship of Israel. Jude did not pass through this formal ceremony for several years, until he was next in Jerusalem at a Passover and in connection with his propaganda work in behalf of the Zealots, the patriotic organization to which he belonged and in which he was very active.

128:6.7 (1415.7) The morning following their second day in prison Jesus appeared before the military magistrate in behalf of Jude. By making apologies for his brother's youth and by a further explanatory but judicious statement with reference to the provocative nature of the episode which had led up to the arrest of his brother, Jesus so handled the case that the magistrat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young Jew might have had some possible excuse for his violent outburst. After warning Jude not to allow himself again to be guilty of such rashness, he said to Jesus in dismissing them: “You had better keep your eye on the lad; he's liable to make a lot of trouble for all of you.” And the Roman judge spoke the truth. Jude did make considerable trouble for Jesus, and always was the trouble of this same nature — clashes with the civil authorities because of his thoughtless and unwise patriotic outbursts.

128:6.8 (1416.1) Jesus and Jude walked over to Bethany for the night, explaining why they had failed to keep their appointment for the Passover supper, and set out for Nazareth the following day. Jesus did not tell the family about his young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온 뒤 3주간 동안을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유다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와의 이 대화 이후에 유다는 스스로 그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이번에 고통스럽게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현시된 자신의 형-아버지의 인내심과 관용에 대해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가 자기 가족 중 어떤 일원과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혈육과의 가깝게 관련됨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어 갔다.

그 해에, 그의 깊은 명상의 시간들은 룯과 그녀의 소꿉친구들에 의해서 종종 방해받곤 하였다. 예수는 꼬마 친구들의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우주를 위한 미래의 일에 대한 깊은 사색을 뒤로 미룰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으며, 그 아이들은 예수의 여러 차체에 걸친 예루살렘 여행에서의 그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결코 싫증 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동물들과 자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매우 좋아하였다.

수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예수는 수리소 옆에 모래와 나무토막들이나 돌들을 준비해 놓았으며, 꼬마 아이들 무리가 놀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놀이를 하다가 싫증이 나면 그 중에 제일 대담한 아이가 가게 안을 엿보았고, 만약 가게 일이 바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대담하게 들어와서, “여호수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가 가게 한 구석에 있는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예수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그가 돌에 앉으면 아이들은 그의 주위로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아저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모른다. 그때 그들은 웃는 법을, 실컷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 제일 어린 한 두 아이는 의례 예수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의 손짓을 경이롭게 바라보곤 하였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하였고, 예수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였다.

예수의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지적 활동들의 범위,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그가 5살에서 10살까지의 아이들과 즐겁고 친진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직 손자들이 태어나기 이전인 이 시절에, 그는 이 꼬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손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 있지 못하였다.

brother's arrest at Jerusalem, but he had a long talk with Jude about this episode some three weeks after their return. After this talk with Jesus Jude himself told the family. He never forgot the patience and forbearance his brother-father manifested throughout the whole of this trying experience.

128:6.9 (1416.2) This was the last Passover Jesus attended with any member of his own family. Increasingly the Son of Man was to become separated from close association with his own flesh and blood.

128:6.10 (1416.3) This year his seasons of deep meditation were often broken into by Ruth and her playmates. And always was Jesus ready to postpone the contemplation of his future work for the world and the universe that he might share in the childish joy and youthful gladness of these youngsters, who never tired of listening to Jesus relate the experiences of his various trips to Jerusalem. They also greatly enjoyed his stories about animals and nature.

128:6.11 (1416.4) The children were always welcome at the repair shop. Jesus provided sand, blocks, and stones by the side of the shop, and bevvies of youngsters flocked there to amuse themselves. When they tired of their play, the more intrepid ones would peek into the shop, and if its keeper were not busy, they would make bold to go in and say, “Uncle Joshua, come out and tell us a big story.” Then they would lead him out by tugging at his hands until he was seated on the favorite rock by the corner of the shop, with the children on the ground in a semicircle before him. And how the little folks did enjoy their Uncle Joshua. They were learning to laugh, and to laugh heartily. It was customary for one or two of the smallest of the children to climb upon his knees and sit there, looking up in wonderment at his expressive features as he told his stories. The children loved Jesus, and Jesus loved the children.

128:6.12 (1416.5) It was difficult for his friends to comprehend the range of his intellectual activities, how he could so suddenly and so completely swing from the profound discussion of politics, philosophy, or religion to the lighthearted and joyous playfulness of these tots of from five to ten years of age. As his own brothers and sisters grew up, as he gained more leisure, and before the grandchildren arrived, he paid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se little ones. But he did not live on earth long enough to enjoy the grandchildren very much.

제 7 장 . 26살 되던 해 (서기 20년)

7. THE TWENTY-SIXTH YEAR (A.D. 20)

그 해가 시작되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광대한 영역의 잠재 힘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의

128:7.1 (1416.6) As this year began, Jesus of Nazareth became strongly conscious that he

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힘은, 적어도 그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개인성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즈음에 그는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모든 생각에 대한 결론을 한 번 표현한 적이 있었으며,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사용하게 될 혹은 사용하지 못할 그 힘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였다. 일터에 오가며 나사렛을 거닐던 이 남자에 대하여 기록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말은—광대한 우주에 관한 한은—문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그 해에는, 유다의 경우만을 제외한다면, 가족의 관련사들이 무난히 진행되었다. 야고보는 막내 남동생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속을 썩었는데, 그는 자리 잡고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가정의 생활비에 대한 자기 몫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집안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할 자신의 몫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따금, 유다의 호전적인 행위와 수많은 애국심의 폭발로, 그는 난처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유다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예수는 단지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참아라. 그리고 현명하게 조언하고 삶에서 모범을 보여라. 너희의 어린 동생에게 먼저 더 나은 길을 알려 주고 난 뒤에, 너희를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어라.” 이러한 예수의 현명하고 사랑 어린 조언은 가족 내의 분열을 막았고,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결혼한 이후에서야 침착한 기질을 갖게 되었다.

마리아는 예수의 장차 사명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주제가 거론될 때마다 예수는 단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는 가족을 자신의 즉각적인 현존에 의존함에서 떼어놓는 어려운 작업을 거의 완성시켰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실제 사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 고향 집을 아무런 문제없이 떠날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갔다.

예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 속에 있는 주요 사명이 창조체의 체험을 획득하는 것, 네바돈의 주권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체험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유란시아는 물론 지역우주 전체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최극으로 계시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 성취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는 루시퍼의 반역에 관련된 이 행성의 복잡한 관련사들을 해결하는 임무도 또한 맡았다.

possessed a wide range of potential power. But he was likewise fully persuaded that this power was not to be employed by his personality as the Son of Man, at least not until his hour should come.

128:7.2 (1417.1) At this time he thought much but said little about the relation of himself to his Father in heaven. And the conclusion of all this thinking was expressed once in his prayer on the hilltop, when he said: “Regardless of who I am and what power I may or may not wield, I always have been, and always will be, subject to the will of my Paradise Father.” And yet, as this man walked about Nazareth to and from his work, it was literally true — as concerned a vast universe — that “in him we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128:7.3 (1417.2) All this year the family affairs ran smoothly except for Jude. For years James had trouble with his youngest brother, who was not inclined to settle down to work nor was he to be depended upon for his share of the home expenses. While he would live at home, he was not conscientious about earning his share of the family upkeep.

128:7.4 (1417.3) Jesus was a man of peace, and ever and anon was he embarrassed by Jude’s belligerent exploits and numerous patriotic outbursts. James and Joseph were in favor of casting him out, but Jesus would not consent. When their patience would be severely tried, Jesus would only counsel: “Be patient. Be wise in your counsel and eloquent in your lives, that your young brother may first know the better way and then be constrained to follow you in it.” The wise and loving counsel of Jesus prevented a break in the family; they remained together. But Jude never was brought to his sober senses until after his marriage.

128:7.5 (1417.4) Mary seldom spoke of Jesus’ future mission. Whenever this subject was referred to, Jesus only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Jesus had about completed the difficult task of weaning his family from dependence on the immediate presence of his personality. He was rapidly preparing for the day when he could consistently leave this Nazareth home to begin the more active prelude to his real ministry for men.

128:7.6 (1417.5)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 prime mission of Jesus in his seventh bestowal was the acquirement of creature experience, the achievement of the sovereignty of Nebadon. And in the gathering of this very experience he made the supreme revelation of the Paradise Father to Urantia and to his entire local universe. Incidental to these purposes he also undertook to untangle the complicated affairs of this planet as they were related to the Lucifer rebellion.

그 해에 예수는 평상시보다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며, 수리점의 경영에 대하여 야고보를 훈련시켰고, 요셉에게 집안 관련사들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쏟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무엇을 하려고? 그녀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자기 맏아들을 도대체 추측할 수 없었다.

이 해 동안, 예수는 그의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동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그리고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고자 하였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는 나사렛 남쪽에서 농사일을 하는 삼촌에게 유다를 데리고 갔지만, 추수가 끝나자 유다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달아나 버렸으며, 나중에 호숫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있는 그를 시몬이 발견하였다.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는 그 도망자 소년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였고, 그가 어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막달라로 가서 친족 어부에게 그를 맡겼으며; 유다는 그 날 이후부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무던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을 하였고, 결혼한 뒤에도 그는 계속 어부로 일하였다.

드디어 예수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생업을 정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평생 직업으로 삼는 날이 왔다. 예수가 집을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1월에는 두 쌍의 결혼식이 발생하였다. 야고보와 에스더, 미리암과 야곱이 결혼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때때로 깨닫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 번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불확실성에 짓눌려 고심하였다. 예수가 소년시절처럼 앉아서 자유롭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다; 미래에 대해서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야고보와 그의 신부 에스더는,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해 준 읍내 서쪽편의 산뜻한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 야고보가 어머니의 집안에 도움을 계속 주었지만, 결혼 때문에 그에게 할당된 액수는 반으로 줄었으며, 예수의 뜻에 의해 요셉이 공식적인 가장으로 임명되었다. 유다는 이제 매우 신실하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매 달 집으로 보내왔다. 야고보와 미리암의 결혼식은 유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두 쌍의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유다는 고기잡이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 필요하다면 더 이상의 몫이라도 맡겠다.”라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미리암은 마리아의 이웃집인 야곱의 집에서 살았는데, 장로(長老)였던 야곱은 이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있었다. 마르다는 미리암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였고, 새롭게 짜인 조직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었다.

128:7.7 (1417.6) This year Jesus enjoyed more than usual leisure, and he devoted much time to training James in the management of the repair shop and Joseph in the direction of home affairs. Mary sensed that he was making ready to leave them. Leave them to go where? To do what? She had about given up the thought that Jesus was the Messiah. She could not understand him; she simply could not fathom her first-born son.

128:7.8 (1417.7) Jesus spent a great deal of time this year with the individual members of his family. He would take them for long and frequent strolls up the hill and through the countryside. Before harvest he took Jude to the farmer uncle south of Nazareth, but Jude did not remain long after the harvest. He ran away, and Simon later found him with the fishermen at the lake. When Simon brought him back home, Jesus talked things over with the runaway lad and, since he wanted to be a fisherman, went over to Magdala with him and put him in the care of a relative, a fisherman; and Jude worked fairly well and regularly from that time on until his marriage, and he continued as a fisherman after his marriage.

128:7.9 (1418.1) At last the day had come when all Jesus' brothers had chosen, and were established in, their lifework. The stage was being set for Jesus' departure from home.

128:7.10 (1418.2) In November a double wedding occurred. James and Esta, and Miriam and Jacob were married. It was truly a joyous occasion. Even Mary was once more happy except every now and then when she realized that Jesus was preparing to go away. She suffered under the burden of a great uncertainty: If Jesus would only sit down and talk it all over freely with her as he had done when he was a boy, but he was consistently uncommunicative; he was profoundly silent about the future.

128:7.11 (1418.3) James and his bride, Esta, moved into a neat little home on the west side of town, the gift of her father. While James continued his support of his mother's home, his quota was cut in half because of his marriage, and Joseph was formally installed by Jesus as head of the family. Jude was now very faithfully sending his share of funds home each month. The weddings of James and Miriam had a very beneficial influence on Jude, and when he left for the fishing grounds, the day after the double wedding, he assured Joseph that he could depend on him “to do my full duty, and more if it is needed.” And he kept his promise.

128:7.12 (1418.4) Miriam lived next door to Mary in the home of Jacob, Jacob the elder having been laid to rest with his fathers. Martha took Miriam's place in the home, and the new organization was working smoothly before the year ended.

두 쌍의 결혼식이 있었던 다음 날, 예수는 야고보와 중대한 의논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야고보에게 확실하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점의 책임자 직함을 야고보에게 물려주었고 요셉 집안 가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엄숙하게 내어 주었으며, 예수는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동생 야고보를 “내 아버지 집의 가장이며 수호자”로 세워주었다. 수리점을 선물로 물려받은 대신에, 야고보는 가족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맡아보면서 예수를 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비밀 계약서를 예수가 작성했고 둘이 서명을 하였다. 이리하여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고 예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계의 실제적인 비용의 예산안이 정리되었을 때, 예수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애야, 내 때가 올 때까지는 매달 얼마씩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만 네가 쓰도록 해라. 네가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의 필수품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가족 중의 어떤 개별 구성원이라도 예측하지 못한 병이나 비상시를 만나면 그를 위해 그 돈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에 대한 대중을 위한 등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일생에서의 가정과-분리되는 두 번째 위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128:7.13 (1418.5) The day after this double wedding Jesus held an important conference with James. He told James, confidentially, that he was preparing to leave home. He presented full title to the repair shop to James, formally and solemnly abdicated as head of Joseph's house, and most touchingly established his brother James as “head and protector of my father's house.” He drew up, and they both signed, a secret compact in which it was stipulated that, in return for the gift of the repair shop, James would henceforth assum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thus releasing Jesus from all further obligations in these matters. After the contract was signed, after the budget was so arranged that the actual expenses of the family would be met without any contribution from Jesus, Jesus said to James: “But, my son, I will continue to send you something each month until my hour shall have come, but what I send shall be used by you as the occasion demands. Apply my funds to the family necessities or pleasures as you see fit. Use them in case of sickness or apply them to meet the unexpected emergencies which may befall any individual member of the family.”

128:7.14 (1418.6) And thus did Jesus make ready to enter upon the second and home-detached phase of his adult life before the public entrance upon his Father's business.

제 129 편 예수의 성년 시절 후기

⇨ 128

유랜시아 책

13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29 편 예수의 성년 시절 후기

섹션

소개

제 1 장. 27살 되던 해 (서기 21년)

제 2 장. 28살 되던 해 (서기 22년)

제 3 장. 29살 되던 해 (서기 23년)

제 4 장. 인간 예수

소개

예수는 나사렛 가족의 집안 관련사들을 돌보는 것과 가족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도하던 것으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세례의 사건 직전까지 가족의 재정에도움을 계속 주었고, 또한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 각자의 영적 행복에 세심한 관심을 쏟았다. 또한 그는 홀로된 어머니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인간적 배려를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은 그 자신이 나사렛 고향집으로부터 영구히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는 본성적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였으며, 본성적인 이 애정은 그들에게 대한 자신의 비범한 헌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증강되어 있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증여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지게 되는데; 예수도 자기 가족들에게 것처럼 충만하게 주었기 때문에, 더욱 숭고하고 강렬한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가족들 모두는 예수가 자신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예상된 이별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획된 떠남을 알릴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점진적인 방법뿐이었다. 그리고 거의 4년 넘게 예수가 이 결국 생겨나는 이별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

PAPER 129

THE LATER ADULT LIFE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wenty-Seventh Year (A.D. 21)

2. The Twenty-Eighth Year (A.D. 22)

3. The Twenty-Ninth Year (A.D. 23)

4. The Human Jesus

INTRODUCTION

^{129:0.1 (1419.1)} JESUS had fully and finally separated himself from the management of the domestic affairs of the Nazareth family and from the immediate direction of its individuals. He continued,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baptism, to contribute to the family finances and to take a keen personal interest in the spiritual welfare of every one of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always was he ready to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for the comfort and happiness of his widowed mother.

^{129:0.2 (1419.2)} The Son of Man had now made every preparation for detaching himself permanently from the Nazareth home; and this was not easy for him to do. Jesus naturally loved his people; he loved his family, and this natural affection had been tremendously augmented by his extraordinary devotion to them. The more fully we bestow ourselves upon our fellows, the more we come to love them; and since Jesus had given himself so fully to his family, he loved them with a great and fervent affection.

^{129:0.3 (1419.3)} All the family had slowly awakened to the realization that Jesus was making ready to leave them. The sadness of the anticipated separation was only tempered by this graduated method of preparing them for the announcement of his intended departure. For more than four years they discerned that he was planning for this

다.

제 1 장. 27살 되던 해 (서기 21년)

서기 21년, 그 해 1월 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형식을 차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자신은 티베리아스로 갈 것이며 그 후 갈릴리바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겠다는 설명만을 덧붙였다. 그렇게 하여 예수는 그들을 떠났고, 다시는 그 가정의 정식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동안 티베리아스에서 보냈고, 그곳은 세포리를 대신하여 곧 갈릴리의 수도가 되기로 예정된 신도시(新都市)였으며; 그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거의 발견되지 않자, 그는 잇달아서 막달라와 벳세다를 거쳐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친구인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머물렀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들이었다; 세베대 자신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에 숙련자였고; 나무를 다루는 일에는 이미 장인(匠人)의 경지에 있었다; 세베대도 그 나사렛 기술자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세베대는 개량된 배를 만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하고 있었으며, 이제 자신의 설계도를 예수 앞에 펼쳐면서 그 찾아 온 목수에게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할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예수도 쾌히 승낙하였다.

예수는 세베대와 1년이 조금 넘도록 함께 일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새로운 모양의 배를 만들었고 배 건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정립시켰다. 우월한 기법과 증기를 뿜는 널빤지를 이용하는 대단히 개선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와 세베대는 매우 우월한 유형의 배들, 이전에 사용하던 구식 배보다 훨씬 안전하게 호수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신형(新型) 배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세베대는 그의 작은 시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년 동안 했으며; 불과 5년이 채 못 되어, 호수 위에 떠있는 모든 배들은 실천적으로 가버나움의 세베대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신형 배의 설계자로 유명해졌다.

세베대는 적당히 재력이 있었다; 그의 조선소는 가버나움의 남쪽 호숫가에 있었고 그의 집은 벳세다의 어업기지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그 해 동안 세베대의 집에서 살았지만 가버나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예수는 아버지를 여의고 오랫동안 세상에서 혼자 일해 왔으므로, 그의 아버지 격인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매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 한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大祭司長)이었다가 8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사두개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안나스의 친족이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매우 탄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를 자기의 친아들인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윗처럼 사랑하였

eventual separation.

1. THE TWENTY-SEVENTH YEAR (A.D. 21)

129:1.1 (1419.4) In January of this year, A.D. 21, on a rainy Sunday morning, Jesus took unceremonious leave of his family, only explaining that he was going over to Tiberias and then on a visit to other cities about the Sea of Galilee. And thus he left them, never again to be a regular member of that household.

129:1.2 (1419.5) He spent one week at Tiberias, the new city which was soon to succeed Sepphoris as the capital of Galilee; and finding little to interest him, he passed on successively through Magdala and Bethsaida to Capernaum, where he stopped to pay a visit to his father's friend Zebedee. Zebedee's sons were fishermen; he himself was a boatbuilder. Jesus of Nazareth was an expert in both designing and building; he was a master at working with wood; and Zebedee had long known of the skill of the Nazareth craftsman. For a long time Zebedee had contemplated making improved boats; he now laid his plans before Jesus and invited the visiting carpenter to join him in the enterprise, and Jesus readily consented.

129:1.3 (1419.6) Jesus worked with Zebedee only a little more than one year, but during that time he created a new style of boat and established entirely new methods of boatmaking. By superior technique and greatly improved methods of steaming the boards, Jesus and Zebedee began to build boats of a very superior type, craft which were far more safe for sailing the lake than were the older types. For several years Zebedee had more work, turning out these new-style boats, than his small establishment could handle; in less than five years practically all the craft on the lake had been built in the shop of Zebedee at Capernaum. Jesus became well known to the Galilean fisherfolk as the designer of the new boats.

129:1.4 (1420.1) Zebedee was a moderately well-to-do man; his boatbuilding shops were on the lake to the south of Capernaum, and his home was situated down the lake shore near the fishing headquarters of Bethsaida. Jesus lived in the home of Zebedee during the year and more he remained at Capernaum. He had long worked alone in the world, that is, without a father, and greatly enjoyed this period of working with a father-partner.

129:1.5 (1420.2) Zebedee's wife, Salome, was a relative of Annas, onetime high priest at Jerusalem and still the most influential of the Sadducean group, having been deposed only eight years previously. Salome became a great admirer of Jesus. She loved him as she loved her own sons,

고, 그녀의 네 딸들도 예수를 큰오빠로 여겼다. 예수는 종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으며, 그들은 예수가 배 만드는 일에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어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 년 동안, 예수는 야고보에게 돈을 매달 보냈다. 그리고 10월에는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사렛을 다녀왔고, 그 후로 2년 동안 예수는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간 것은 시몬과 유다의 두 쌍의 결혼식 바로 전이었다.

이 한 해 동안, 예수는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관찰하였다. 그는 카라반들의 집결지인 가버나움을 자주 방문하곤 하였는데, 그 도시는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직선 여행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가버나움은 견고한 로마군 부대 주둔지로 중요한 장소였고, 부대의 사령관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믿는 “헌신된 사람”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개종자들을 흔히 그렇게 불렀다. 이 장교는 로마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스스로 가버나움에 아름다운 회당을 지었으며, 예수가 세베대와 함께 살기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기증하였다. 예수는 그 해에 반(半)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새 회당에서 예배봉사를 수행하였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하였던 어떤 카라반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을 낼 기한이 되자, 예수는 자신을 “가버나움의 숙련된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이 날 이후부터 그의 지상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가버나움 주민으로 알려졌다. 비록 그는 자기 거주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마스쿠스, 베다니, 나사렛,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버려두었지만, 그 자신은 다른 어떤 법적 거주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동안, 그는 서고 속에서 많은 새로운 책들을 발견하였고,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 저녁은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중에서 하루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냈고 나머지 하루 저녁은 젊은 사람들과 보냈다. 예수의 개인성 속에는, 젊은이들을 늘 끌어당기는 온유하고 영감 어린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의 큰 비결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항상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과 그들이 물어오지 않는 한 그들에게 거의 충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베대의 가족은 예수를 거의 경배할 정도였으며,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수가 회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수행하는 질의응답 회의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이웃의 젊은이들 역시 저녁 식사 후의 이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다. 적은 숫자의 이 무리들에게 예수는 다양하고 진보적인

James, John, and David, while her four daughters looked upon Jesus as their elder brother. Jesus often went out fishing with James, John, and David, and they learned that he was an experienced fisherman as well as an expert boatbuilder.

129:1.6 (1420.3) All this year Jesus sent money each month to James. He returned to Nazareth in October to attend Martha's wedding, and he was not again in Nazareth for over two years, when he returned shortly before the double wedding of Simon and Jude.

129:1.7 (1420.4) Throughout this year Jesus built boats and continued to observe how men lived on earth. Frequently he would go down to visit at the caravan station, Capernaum being on the direct travel route from Damascus to the south. Capernaum was a strong Roman military post, and the garrison's commanding officer was a gentile believer in Yahweh, “a devout man,” as the Jews were wont to designate such proselytes. This officer belonged to a wealthy Roman family, and he took it upon himself to build a beautiful synagogue in Capernaum, which had been presented to the Jews a short time before Jesus came to live with Zebedee. Jesus conducted the services in this new synagogue more than half the time this year, and some of the caravan people who chanced to attend remembered him as the carpenter from Nazareth.

129:1.8 (1420.5) When it came to the payment of taxes, Jesus registered himself as a “skilled craftsman of Capernaum.” From this day on to the end of his earth life he was known as a resident of Capernaum. He never claimed any other legal residence, although he did, for various reasons, permit others to assign his residence to Damascus, Bethany, Nazareth, and even Alexandria.

129:1.9 (1420.6) At the Capernaum synagogue he found many new books in the library chests, and he spent at least five evenings a week at intense study. One evening he devoted to social life with the older folks, and one evening he spent with the young people. There was something gracious and inspiring about the personality of Jesus which invariably attracted young people. He always made them feel at ease in his presence. Perhaps his great secret in getting along with them consisted in the twofold fact that he was always interested in what they were doing, while he seldom offered them advice unless they asked for it.

129:1.10 (1420.7) The Zebedee family almost worshiped Jesus, and they never failed to attend the conferences of questions and answers which he conducted each evening after supper before he departed for the synagogue to study. The youthful neighbors also came in frequently to attend these

것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장 진보적인 것을 말하였다. 그는 그들과 매우 자유롭게 이야기하였고, 정치학, 사회학, 과학, 철학 등에 관해서 그의 관념과 이상들을 표현하였지만, 종교—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권위적인 최종을 주장하지 않았다.

세베대에게는 많은 고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작업장 그리고 호숫가의 조력자들 전원과 함께 모임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일꾼들 사이에서 예수는 “주(主)”라고 처음으로 불렸다. 그들 모두는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나사렛 목공소 옆에서 놀던 꼬마 아이들을 몹시 보고 싶어 하였다.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선생, 철학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요한은 주로 그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견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다윗은 그를 하나의 기술자로는 존중하였지만, 그의 종교적인 견해와 철학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유다는 안식일 날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종종 그곳에 왔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다. 유다는 자기 큰형을 자주 대할수록,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그 해에 예수는 인간 마음을 우세하게 지배하는 일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고, 자기 속에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의식적인 접촉을 이루는 새롭고도 높은 차원들을 달성하였다.

그 해는 그의 정착된 일생의 마지막 해였다. 그 후로 그는 한 곳에서 또는 한 가지 일에 한 해 전부를 보낸 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이 땅의 순례 여행의 날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집중적인 활동 시기가 오기까지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반면에 강렬하고 활동적이었던 그의 과거의 일생과, 더욱 긴장되고 격렬한 앞으로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 수년 동안의 광범위한 여행과 매우 변화가 많은 개인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맞고 있었다. 그의 유란시아 중여의 신성한 그리고 인간-이후의 위상들에 해당하는 완전케 된 하느님-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의 생애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훈련이 완성되어야만 했었다.

after-supper meetings. To these little gatherings Jesus gave varied and advanced instruction, just as advanced as they could comprehend. He talked quite freely with them, expressing his ideas and ideals about politics, sociology, science, and philosophy, but never presumed to speak with authoritative finality except when discussing religion — the relation of man to God.

129:1.11 (1421.1) Once a week Jesus held a meeting with the entire household, shop, and shore helpers, for Zebedee had many employees. And it was among these workers that Jesus was first called “the Master.” They all loved him. He enjoyed his labors with Zebedee in Capernaum, but he missed the children playing out by the side of the Nazareth carpenter shop.

129:1.12 (1421.2) Of the sons of Zebedee, James was the most interested in Jesus as a teacher, as a philosopher. John cared most for his religious teaching and opinions. David respected him as a mechanic but took little stock in his religious views and philosophic teachings.

129:1.13 (1421.3) Frequently Jude came over on the Sabbath to hear Jesus talk in the synagogue and would tarry to visit with him. And the more Jude saw of his eldest brother, the more he became convinced that Jesus was a truly great man.

129:1.14 (1421.4) This year Jesus made great advances in the ascendant mastery of his human mind and attained new and high levels of conscious contact with his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29:1.15 (1421.5) This was the last year of his settled life. Never again did Jesus spend a whole year in one place or at one undertaking. The days of his earth pilgrimages were rapidly approaching. Periods of intense activity were not far in the future, but there were now about to intervene between his simple but intensely active life of the past and his still more intense and strenuous public ministry, a few years of extensive travel and highly diversified personal activity. His training as a man of the realm had to be completed before he could enter upon his career of teaching and preaching as the perfected God-man of the divine and posthuman phases of his Urantia bestowal.

제 2 장. 28살 되던 해 (서기 22년)

서기 22년 3월, 예수는 세베대와 작별하고 가버나움을 떠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드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약간의 돈을 요청하였다. 그는 세베대와 일하는 동안 아주 적은 양의 돈만 꺼내서 그것을 매달 나사렛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한 달은 요셉이 예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가버

2. THE TWENTY-EIGHTH YEAR (A.D. 22)

129:2.1 (1421.6) In March, A.D. 22, Jesus took leave of Zebedee and of Capernaum. He asked for a small sum of money to defray his expenses to Jerusalem. While working with Zebedee he had drawn only small sums of money, which each month he would send to the family at Nazareth.

나움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 달에는 유다가 가버나움으로 올라 와 그것을 받아 나사렛으로 가지고 갔다. 유다가 일하는 어업기지(漁業基地)는 가버나움의 남쪽으로 겨우 몇 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세베대의 가족들을 떠나면서, 유월절 기간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기로 동의하였고, 그들 모두가 그 사건 동안 거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유월절 저녁만찬을 함께 축하할 것까지도 계획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떠날 때 하나같이 슬퍼하였으며, 특히 세베대의 딸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자신의 새로 발견한 친구이며 친밀한 동행자인 요한 세베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요한에게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널리 여행을 할 계획임을 말하였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나사렛 가족에게 매달 일정량의 돈을 보내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약속하였다: “나의 선생이시여,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과업을 이루십시오;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라도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처리할 것이며, 제가 친어머니와 친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 가족들은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몫은 제가 맡아서, 당신이 지도한 대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쓰겠으며, 만약 그 돈이 다 사용된 후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된다면, 제가 당신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 없다 해도 제가 번 돈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평온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제가 이 모든 일들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요한은 예수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의논하였으며, 그 액수가 매우 많은 것에 놀랐다. 예수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사렛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세베대는 우선 일부만 받고 팔려고 내 놓은 작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돈으로 그 집을 매입해서 요한이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집문서를 맡아보는 신탁인(信託人)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 2년 동안의 집의 임대수입은 나머지 집값을 갚기 위해 저축되었으며, 이 돈에, 예수가 그때 요한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데 쓰도록 보내온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증강되어, 집값을 거의 갚을 만한 액수가 되었고; 기한이 되었을 때 세베대가 약간의 차액을 자기 돈으로 보충하였으므로, 요한은 방이 두개인 이 집을 완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의 소유주가 되었지만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사렛의 가족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맡은 재정적 원조에

One month Joseph would come down to Capernaum for the money; the next month Jude would come over to Capernaum, get the money from Jesus, and take it up to Nazareth. Jude's fishing headquarters was only a few miles south of Capernaum.

129:2.2 (1421.7) When Jesus took leave of Zebedee's family, he agreed to remain in Jerusalem until Passover time, and they all promised to be present for that event. They even arranged to celebrate the Passover supper together. They all sorrowed when Jesus left them, especially the daughters of Zebedee.

129:2.3 (1421.8) Before leaving Capernaum, Jesus had a long talk with his new-found friend and close companion, John Zebedee. He told John that he contemplated traveling extensively until “my hour shall come” and asked John to act in his stead in the matter of sending some money to the family at Nazareth each month until the funds due him should be exhausted. And John made him this promise: “My Teacher, go about your business, do your work in the world; I will act for you in this or any other matter, and I will watch over your family even as I would foster my own mother and care for my own brothers and sisters. I will disburse your funds which my father holds as you have directed and as they may be needed, and when your money has been expended, if I do not receive more from you, and if your mother is in need, then will I share my own earnings with her. Go your way in peace. I will act in your stead in all these matters.”

129:2.4 (1422.1) Therefore, after Jesus had departed for Jerusalem, John consulted with his father, Zebedee, regarding the money due Jesus, and he was surprised that it was such a large sum. As Jesus had left the matter so entirely in their hands, they agreed that it would be the better plan to invest these funds in property and use the income for assisting the family at Nazareth; and since Zebedee knew of a little house in Capernaum which carried a mortgage and was for sale, he directed John to buy this house with Jesus' money and hold the title in trust for his friend. And John did as his father advised him. For two years the rent of this house was applied on the mortgage, and this, augmented by a certain large fund which Jesus presently sent up to John to be used as needed by the family, almost equaled the amount of this obligation; and Zebedee supplied the difference, so that John paid up the remainder of the mortgage when it fell due, thereby securing clear title to this two-room house. In this way Jesus became the owner of a house in Capernaum, but he had not been told about it.

129:2.5 (1422.2) When the family at Nazareth heard that Jesus had departed from Capernaum, they,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기야 할 때가 왔다고 믿었다. 야고보는 예수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였으며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충분히 맡아보았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거의 두 달 동안 그는 성전에서 열리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학파들에 속한 랍비들을 가끔씩 방문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안식일은 베다니에서 보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자신을 “내 친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편지를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로부터 받아 가지고 왔었다. 안나스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이 운영하는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였다. 예수는 이 학파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 교습(敎習)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비록 안나스는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에게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학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학생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는 예수가 한 번도 이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사의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그의 전(全)가족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두 안나스의 넓은 집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즐거운 한 가족이 되어 유월절을 기념하였다.

유월절 주간이 끝나기 전에, 길으로 보기에 우연한 기회에, 예수는 부유한 여행자와 그의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은 17세 정도 된 청년이었다. 이 두 여행자들은 인도인이었는데, 로마와 지중해의 여러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는 도중이었고, 자기들 둘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유월절 기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자기들과 함께 여행해 주도록 예수에게 끈질기게 부탁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가족들과 거의 2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그 여행자는 필요시에 예수의 가족의 안녕을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일 년 분 봉급을 미리 주겠다고 예수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그 여행에 동참하기로 동의하였다.

예수는 이 많은 돈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전부 맡겼다. 그리고 이미 너희는 요한이 이 돈을 가버나움의 집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다. 예수는 세베대를 충분히 신뢰하고 지중해 지역의 여행에 대해 말해 주었지

not knowing of this financial arrangement with John, believed the time had come for them to get along without any further help from Jesus. James remembered his contract with Jesus and, with the help of his brothers, forthwith assumed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the family.

129:2.6 (1422.3) But let us go back to observe Jesus in Jerusalem. For almost two months he spent the greater part of his time listening to the temple discussions with occasional visits to the various schools of the rabbis. Most of the Sabbath days he spent at Bethany.

129:2.7 (1422.4) Jesus had carried with him to Jerusalem a letter from Salome, Zebedee's wife, introducing him to the former high priest, Annas, as “one, the same as my own son.” Annas spent much time with him, personally taking him to visit the many academies of the Jerusalem religious teachers. While Jesus thoroughly inspected these schools and carefully observed their methods of teaching, he never so much as asked a single question in public. Although Annas looked upon Jesus as a great man, he was puzzled as to how to advise him. He recognized the foolishness of suggesting that he enter any of the schools of Jerusalem as a student, and yet he well knew Jesus would never be accorded the status of a regular teacher inasmuch as he had never been trained in these schools.

129:2.8 (1422.5) Presently the time of the Passover drew near, and along with the throngs from every quarter there arrived at Jerusalem from Capernaum, Zebedee and his entire family. They all stopped at the spacious home of Annas, where they celebrated the Passover as one happy family.

129:2.9 (1422.6) Before the end of this Passover week, by apparent chance, Jesus met a wealthy traveler and his son, a young man about seventeen years of age. These travelers hailed from India, and being on their way to visit Rome and various other points on the Mediterranean, they had arranged to arrive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hoping to find someone whom they could engage as interpreter for both and tutor for the son. The father was insistent that Jesus consent to travel with them. Jesus told him about his family and that it was hardly fair to go away for almost two years, during which time they might find themselves in need. Whereupon, this traveler from the Orient proposed to advance to Jesus the wages of one year so that he could intrust such funds to his friends for the safeguarding of his family against want. And Jesus agreed to make the trip.

129:2.10 (1423.1) Jesus turned this large sum over to John the son of Zebedee. And you have been told how John applied this money toward the liquidation of the mortgage on the Capernaum property. Jesus took Zebedee fully into his confidence

만,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의 혈육들에게 까지도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베대는 예수가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어디에 갔는지를 결코 누설하지 않았다. 예수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사렛의 식구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 요한과 함께 여러 번 나사렛을 찾아온 세베대의 확신에 찬 말만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얼마간의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나사렛의 가족들은 매우 잘 지냈으며; 유다는 자기 몫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외(加外)의 몫까지 감당하였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지시한대로 매달 마리아와 루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제 3 장. 29살 되던 해 (서기 23년)

예수의 29번째 해 전부는 지중해 지역 여행을 마무리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 체험들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한도 내에서, 주요 사건들이 다음 장(障)에 서술되는 내용들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로마 권역 세계에 대한 이 여행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는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고린도와 돌아오는 행로의 다른 경유지들에서는 유대인 교사로 알려졌다.

이 기간은 예수의 일생 중에서 사건 많은 기간이었다. 이 여행 도중에 그는 많은 동무들을 사귀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체험은 그의 가족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알려진 적이 없었고 사도들도 알지 못하였던 그 자신만의 일생의 한 위상이었다. 예수는 계속 육신 속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가 광범위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벧세대의 세베대를 제외하고는) 그 세계를 떠났었다. 그의 친구들 중 몇몇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고 또 다른 이는 인도로 갔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 때 카잔(선생)의 보좌관 자격으로 그곳에 오도록 초청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었다고 생각하였고;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에 없는 동안 문화와 지식의 도시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가족들이 믿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 벧세대에서 배를 만드는 세베대만이 유일하게 이 사실들을 알았지만, 세베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일생이 무슨 의미가 있

regarding this Mediterranean journey, but he enjoined him to tell no man, not even his own flesh and blood, and Zebedee never did disclose his knowledge of Jesus' whereabouts during this long period of almost two years. Before Jesus' return from this trip the family at Nazareth had just about given him up as dead. Only the assurances of Zebedee, who went up to Nazareth with his son John on several occasions, kept hope alive in Mary's heart.

129:2.11 (1423.2) During this time the Nazareth family got along very well; Jude had considerably increased his quota and kept up this extra contribution until he was married. Notwithstanding that they required little assistance, it was the practice of John Zebedee to take presents each month to Mary and Ruth, as Jesus had instructed him.

3. THE TWENTY-NINTH YEAR (A.D. 23)

129:3.1 (1423.3) The whole of Jesus' twenty-ninth year was spent finishing up the tour of the Mediterranean world. The main events, as far as we have permission to reveal these experiences, constitute the subjects of the narratives which immediately follow this paper.

129:3.2 (1423.4) Throughout this tour of the Roman world, for many reasons, Jesus was known as the *Damascus scribe*. At Corinth and other stops on the return trip he was, however, known as the *Jewish tutor*.

129:3.3 (1423.5) This was an eventful period in Jesus' life. While on this journey he made many contacts with his fellow men, but this experience is a phase of his life which he never revealed to any member of his family nor to any of the apostles. Jesus lived out his life in the flesh and departed from this world without anyone (save Zebedee of Bethsaida) knowing that he had made this extensive trip. Some of his friends thought he had returned to Damascus; others thought he had gone to India. His own family inclined to the belief that he was in Alexandria, as they knew that he had once been invited to go there for the purpose of becoming an assistant chazan.

129:3.4 (1423.6) When Jesus returned to Palestine, he did nothing to change the opinion of his family that he had gone from Jerusalem to Alexandria; he permitted them to continue in the belief that all the time he had been absent from Palestine had been spent in that city of learning and culture. Only Zebedee the boatbuilder of Bethsaida knew the facts about these matters, and Zebedee told no one.

129:3.5 (1423.7) In all your efforts to decipher the

는지를 해독하기 위해 너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너희는 미가엘 증여의 동기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신비한 듯한 그의 수많은 행위들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가 너희의 세계에 체류한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과도한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주의를 끌게 하는 개인적 생애를 이루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비범성이나 과대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 동료 필사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였고, 동시에 바로 그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의지에 항상 복종하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일생을 필사자로서 살아가는 숭고한 과업에 전념하였다.

이 신성한 증여를 배우는 모든 필사자 수련생들이, 그가 유란시아에서 이 육신화의 일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을 납득하는데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네바돈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개개의 거주 구체에 대하여, 필사자 자연본성의 육신으로 살았던 그의 일생과 연관하여,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그의 사건 많은 기간 이후로, 거주할 만 하게 된 모든 세계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지역우주의 모든 미래 역사 속에서, 의지를 가진 창조체들이 거주하게 될 모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진리가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로마 지역을 여행한 체험을 통해, 사람의 아들은 그와 동시대에 살던 여러 종류의 민족들과의 교육적인 접촉-훈련을 실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오기까지, 훈련을 위한 이 여행을 통해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지중해 지역을 여행한 그의 실제 목적은 사람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가깝게 사귀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흑인과 백인, 교육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교양 있는 자와 교양 없는 자, 동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만났고 사랑하였다.

이 지중해 지역 여행 도중에, 예수는 물질적인 필사자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신의 인간 과업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에게 내재하는 조절자는 이 동일한 인간 지성을 상승시키고 그것의 영적 정복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우주 아버지의 창조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모든 인간 확실성과 더불어—알게 되었다. 그 조절자는, 그가 이 네바돈 지역우주를 조직하고 관리-운영하기 전에 자신의 신성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파라다이스에서의 체험에 대한 자신의 희미한 기억을, 점점 더 사람의 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하여 그 조절자는, 예수가 영원한 과거의 다양한 신(新) 시대들 속에 사는 동안, 이전(以前)의 신성한 실존

meaning of Jesus' life on Urantia, you must be mindful of the motivation of the Michael bestowal. If you would comprehend the meaning of many of his apparently strange doings, you must discern the purpose of his sojourn on your world. He was consistently careful not to build up an overattractive and attention-consuming personal career. He wanted to make no unusual or overpowering appeals to his fellow men. He was dedicated to the work of revealing the heavenly Father to his fellow mortals and at the same time was consecrated to the sublime task of living his mortal earth life all the while subject to the will of the same Paradise Father.

129:3.6 (1424.1) It will also always be helpful in understanding Jesus' life on earth if all mortal students of this divine bestowal will remember that, while he lived this life of incarnation on Urantia, he lived it for his entire univers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nd inspiring associated with the life he lived in the flesh of mortal nature for every single inhabited sphere throughout all the universe of Nebadon. The same is also true of all those worlds which have become habitable since the eventful times of his sojourn on Urantia. And it will likewise be equally true of all worlds which may become inhabited by will creatures in all the future history of this local universe.

129:3.7 (1424.2) The Son of Man, during the time and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is tour of the Roman world, practically completed his educational contact-training with the diversified peoples of the world of his day and generation. By the time of his return to Nazareth, through the medium of this travel-training he had just about learned how man lived and wrought out his existence on Urantia.

129:3.8 (1424.3) The real purpose of his trip around the Mediterranean basin was to *know men*. He came very close to hundreds of humankind on this journey. He met and loved all manner of men, rich and poor, high and low, black and white, educated and uneducated, cultured and uncultured, animalistic and spiritual, religious and irreligious, moral and immoral.

129:3.9 (1424.4) On this Mediterranean journey Jesus made great advances in his human task of mastering the material and mortal mind, and his indwelling Adjuster made great progress in the ascension and spiritual conquest of this same human intellect. By the end of this tour Jesus virtually knew — with all human certainty — that he was a Son of God, a Creator Son of the Universal Father. The Adjuster more and more was able to bring up in the mind of the Son of Man shadowy memories of his Paradise experience in association with his divine Father ere he ever came to organize and administer this local universe of Nebadon. Thus did the Adjuster, little by little, bring to Jesus' human consciousness

으로 있을 때 가졌던 필요 불가결한 기억들을 예수
의 인간 의식 속으로 조금씩 붙여넣었다. 그 조
절자가 그에게 회상시킨 그의 인간 이전의 체험
중 마지막 에피소드는, 유란시아 육신화의 과정으
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의식적 개인성을 양도
하기 직전에, 구원자별의 임마누엘과 송별 회의를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이전(以前) 실존의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억은,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는 바로 그 날 예수의 의식 속에 명
료해졌다.

제 4 장. 인간 예수

계속 지켜보고 있던 지역우주에 있는 천상(天
上)의 지능존재들에게, 예수의 이 지중해 지역 여
행은, 적어도 십자가에 못박히고 필사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 이전의, 그의 모든 지상 체험 전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곧 뒤이은 그
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의 신(新)시대와는 대조
적으로, 이 기간은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에 있어
서 매혹적인 기간이었다. 이 독특한 에피소드는
그가 여전히 나사렛의 목수였고 가버나움의 선박
목수였으며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더욱 열중하도록 만들
었다; 그는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
는 자신의 인간 마음을 충분히 지배하는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조절자는 필사자의 정체성
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였고 부분화 시키지 못하였
다. 예수는 여전히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아들의 순수한 인간 종교적 체험—개
인적 영적 성장—은 29세가 된 이 해 동안에 거의
정점에 이르는 달성에 도달하였다. 영적 발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그의 생각 조절자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물질적 마음과 영의 마음-자
질—이 두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 요단강에
서 그가 세례 받는 날에, 사람의 아들이, 영역에 육
신화된 필사자로서, 완벽과 최종을 달성했던 그
체험—사이에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인간관계
가 완성되고 확정되는 그 날까지, 일관적으로 점
진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이 해들 전체를 통하여, 그는 하늘에 계신 자
기 아버지와의 공식적인 교제에 많이 참여하지 않
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내주 하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 현존과의 개인적 교통을 이루는 데에
는 효력적인 방법들을 점점 더 완전하게 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일생, 충만한 일생, 그리고 진실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일생을 육신 속
에서 살았다. 그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물질세계들 속에서는, 인간 존재들의 일생
의 삶의 본질과 그 전체 합계의 실재성이 동등하
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의 아들은 뛰어난 기쁨에서부터 심오한

those necessary memories of his former and
divine existence in the various epochs of the well-
nigh eternal past. The last episode of his
prehuman experience to be brought forth by the
Adjuster was his farewell conference with
Immanuel of Salvington just before his surrender
of conscious personality to embark upon the
Urantia incarnation. And this final memory picture
of prehuman existence was made clear in Jesus'
consciousness on the very day of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4. THE HUMAN JESUS

129:4.1 (1424.5) To the onlooking celestial intelligences
of the local universe, this Mediterranean trip was
the most enthralling of all Jesus' earth
experiences, at least of all his career right up to
the event of his crucifixion and mortal death. This
was the fascinating period of his *personal ministry*
in contrast with the soon-following epoch of public
ministry. This unique episode was all the more
engrossing because he was at this time still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boatbuilder of
Capernaum, the scribe of Damascus; he was still
the Son of Man. He had not yet achieved the
complete mastery of his human mind; the Adjuster
had not fully mastered and counterparted the
mortal identity. He was still a man among men.

129:4.2 (1425.1) The purely human religious
experience — the personal spiritual growth — of
the Son of Man well-nigh reached the apex of
attainment during this, the twenty-ninth year. This
experience of spiritual development was a
consistently gradual growth from the moment of
the arrival of his Thought Adjuster until the day of
the completion and confirmation of that natural and
normal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mind of man and the mind-endowment of the spirit
— the phenomenon of the making of these two
minds one, the experience which the Son of Man
attained in completion and finality, as an incarnated
mortal of the realm, on the day of his baptism in
the Jordan.

129:4.3 (1425.2) Throughout these years, while he did
not appear to engage in so many seasons of
formal communion with his Father in heaven, he
perfected increasingly effective methods of
personal communication with the indwelling spirit
presence of the Paradise Father. He lived a real
life, a full life, and a truly normal, natural, and
average life in the flesh. He knows from personal
experience the equivalent of the actuality of the
entire sum and substance of the living of the life of
human beings on the material worlds of time and
space.

129:4.4 (1425.3) The Son of Man experienced those

슬픔까지, 인간 감정의 넓은 영역을 모두 체험하였다. 그는 명량한 아이였으며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존재였으며, 마찬가지로 “슬픔 위에 비탄이 겹쳐진 사람”이었다. 영적 감각에서 보자면, 그는 필사자 일생을 통해 바닥으로부터 꼭대기까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를 체험하였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인간 실존의 사회적 양극단을 통하면서 삶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인류의 전반적인 그리고 완벽한 체험에 대해 지적으로 전적으로 정통하게 되었다.

예수는 생각들과 느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세계에서 진화하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갖는 충동들과 자극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는 육체적, 지적, 영적 자아신분의 시발점부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어른에까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인간 체험까지— 이르는 인간 일생을 살아 나갔다. 그는 지적,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러한 평범하고 친숙한 인간 기간들을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필사자들밖에 성취하지 못한, 인간과 조절자의 화해를 이루는 것과 같은 더욱 높고 진보된 위상도 역시 충만하게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필사 사람의 전 생활을 체험한 그의 일생은, 너희의 세계에서 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가진 모든 다른 진화하는 세계에의 일생에서도 그러하고, 빛과 생명에 정착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진보된 모든 세계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가 필사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완전한 일생이, 이 땅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시대에 사는 기회를 가졌던 그의 동료 필사자들로부터 분별불가하고 보편적인 승인을 받아들이지 못해왔다 할지라도,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가 육신으로 살았던 그 일생은, 하나이자 같은 시기에, 그리고 하나이자 같은 개인성-일생 안에서, 필사 사람에 대해 영원한 하느님의 계시에서의 충만함, 그리고 무한한 창조자의 만족에 대해 완전해진 인간 개인성의 현존활동을 구성하여 이루는 것으로서, 우주 아버지에 의한 충만하고도 분별불가한 승인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참되고 최극 목적이었다. 그는 그 당시 또는 모든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에 대한 완전하고도 세부적인 본보기로 유란시아에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그의 충분하고 풍성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일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모범과 신성한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가 진실하고 순수한 인간 일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모든 인간 존재들이 모방해야 할 어떤 본보기를 설정하려고 이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희들 모두가 땅에서 너희 일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자비로운 보살핌에 의해서 육체 속의 일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 시대에 자신의 있는 상태 그대로 필사자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의 일생을 살라는 모범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설정해 주었던 것이다. 너희는 그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wide ranges of human emotion which reach from superb joy to profound sorrow. He was a child of joy and a being of rare good humor; likewise was he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In a spiritual sense, he did live through the mortal life from the bottom to the top,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From a material point of view, he might appear to have escaped living through both social extremes of human existence, but intellectually he became wholly familiar with the entire and complete experience of humankind.

129:4.5 (1425.4) Jesus knows about the thoughts and feelings, the urges and impulses, of the evolutionary and ascendant mortals of the realms, from birth to death. He has lived the human life from the beginnings of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selfhood up through infancy, childhood, youth, and adulthood — even to the human experience of death. He not only passed through these usual and familiar human periods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advancement, but he *also* fully experienced those higher and more advanced phases of human and Adjuster reconciliation which so few Urantia mortals ever attain. And thus he experienced the full life of mortal man, not only as it is lived on your world, but also as it is lived on all other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even on the highest and most advanced of all the worlds settled in light and life.

129:4.6 (1425.5) Although this perfect life which he liv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may not have received the unqualified and universal approval of his fellow mortals, those who chanced to be his contemporaries on earth, still, the life which Jesus of Nazareth lived in the flesh and on Urantia did receive full and unqualified acceptance by the Universal Father as constituting at one and the same time, and in one and the same personality-life, the fullness of the revelation of the eternal God to mortal man and the presentation of perfected human personality to the satisfaction of the Infinite Creator.

129:4.7 (1425.6) And this was his true and supreme purpose. He did not come down to live on Urantia as the perfect and detailed example for any child or adult, any man or woman, in that age or any other. True it is, indeed, that in his full, rich, beautiful, and noble life we may all find much that is exquisitely exemplary, divinely inspiring, but this is because he lived a true and genuinely human life. Jesus did not live his life on earth in order to set an example for all other human beings to copy. He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by the same mercy ministry that you all may live your lives on earth; and as he lived his mortal life in his day and as *he* was, so did he thereby set the example for all of us thus to live our lives in our day and as *we are*. You may not aspire to live his life, but you can resolve to *live your lives* even as, and by the same means that, he lived his. Jesus may not be the technical

열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그의 삶을 산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의도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예수는 이 지역우주의 전체 영역에서 모든 시대의 필사자들을 위하여 기술적인 본보기와 세세한 부분의 모형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초로 상승 과정이 이루어지는 세계들로부터 우주들의 우주를 지나 하보나를 통해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든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에게, 영속적으로 영감과 지침이 되어 주고 있다.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하느님께로,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스물-아홉 살 되던 해가 저물음에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육신 속으로 머무는 자들로서의 필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완결했다. 그는 하느님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었다;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현시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는, 거의 사람에서의 완전함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and detailed example for all the mortals of all ages on all the realms of this local universe, but he is everlastingly the inspiration and guide of all Paradise pilgrims from the worlds of initial ascension up through a universe of universes and on through Havona to Paradise. Jesus is the *new and living way* from man to God, from the partial to the perfect, from the earthly to the heavenly, from time to eternity.

129:4.8 (1426.1) By the end of the twenty-ninth year Jesus of Nazareth had virtually finished the living of the life required of mortals as sojourners in the flesh. He came on earth the fullness of God to be manifest to man; he had now become well-nigh the perfection of man awaiting the occasion to become manifest to God. And he did all of this before he was thirty years of age.

제 130 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 129

유랜시아 책

13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0 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색션

소개

제 1 장. 요파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제 2 장. 케자리아에서

제 3 장. 알렉산드리아에서

제 4 장. 실체에 관한 강연

제 5 장. 크레테 섬에서

제 6 장. 두려움에 찬 젊은이

제 7 장. 카르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연

제 8 장. 나폴리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소개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생 중에서 28세가 되던 해 대부분과 29세 전반부 기간은 로마인들의 세상을 여행하는 데에 쓰였다. 예수와 두 명의 인도에서 온 인도인—고노드와 그의 아들 가니드—은 서기 22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하였고, 예수는 그 이듬해인 서기 23년 12월 10일에 페르시아 만의 카락스 시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그들은 요파를 경유해서 케자리아로 갔다. 케자리아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거기서 다시 크레테의 라시아로 향해하였다. 크레테에서 키레네를 거쳐 카르타고로 갔다. 카르타고에서 그들은 나폴리로 향하면서 말타와 시라큐스와 메시나를 경유하였다. 나폴리로부터 그들은 카푸아로 갔고 그리하여 아피아 도로를 통하여 로마에 이르렀다.

그들은 로마에서 머문 다음 육로를 이용해 타렌툼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해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니코폴리스와 고린도

PAPER 130

ON THE WAY TO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At Joppa — Discourse on Jonah

2. At Caesarea

3. At Alexandria

4. Discourse on Reality

5. On the Island of Crete

6. The Young Man Who Was Afraid

7. At Carthage — Discourse on Time and Space

8. On the Way to Naples and Rome

INTRODUCTION

130:0.1 (1427.1) THE tour of the Roman world consumed most of the twenty-eighth and the entire twenty-ninth year of Jesus' life on earth. Jesus and the two natives from India — Gonod and his son Ganid — left Jerusalem on a Sunday morning, April 26, A.D. 22. They made their journey according to schedule, and Jesus said good-bye to the father and son in the city of Charax on the Persian Gulf on the tenth day of December the following year, A.D. 23.

130:0.2 (1427.2) From Jerusalem they went to Caesarea by way of Joppa. At Caesarea they took a boat for Alexandria. From Alexandria they sailed for Lasea in Crete. From Crete they sailed for Carthage, touching at Cyrene. At Carthage they took a boat for Naples, stopping at Malta, Syracuse, and Messina. From Naples they went to Capua, whence they traveled by the Appian Way to Rome.

130:0.3 (1427.3) After their stay in Rome they went overland to Tarentum, where they set sail for Athens in Greece, stopping at Nicopolis and

에서 머물렀다. 아테네로부터 그들은 트로아를 경유해서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향해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로드를 들렀다. 그들은 키프러스에 머물면서 상당한 시간을 방문과 휴식으로 보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향해 항해하였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시돈을 여행하였고, 다마스커스까지 갔다. 그곳에서 카라반 길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탐사쿠스와 라리사를 지나갔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우르와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수사로 갔다. 수사에서 그들은 카락스로 갔고, 거기에서 고노드와 가니드는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났다.

예수가 고노드와 가니드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원리를 습득한 것은 다마스커스에서 일했던 4개월 동안이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고노드의 고향 출신인 한 인도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스어를 인도의 언어들 중의 하나로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예수는 매일 대략 절반의 시간을 가니드를 가르치는 일과, 고노드의 사업상 회합 그리고 사교에 있어서의 통역 일을 하며 보냈다. 매일의 나머지 시간은 예수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는 그 시간들을 전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보냈는데, 그가 그 세계의 필사자들과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것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직전 몇 년 동안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직접적인 관찰과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예수는 서양과 레반트 지역의 비교적 높은 물질적 그리고 지적 문명을 스스로 습득하였다; 고노드와 그의 영리한 아들로부터는 인도와 중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고노드 자신은 인도의 시민이면서도 황색 인종의 제국까지 세 번이나 두루 여행을 한 사람이었다.

이 젊은 사람 가니드는, 이와 같은 예수와의 길고도 친밀한 동행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서로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 예수에게 그들과 함께 인도로 가자고 여러 번 청했지만, 예수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청을 사양하였다.

제 1 장. 요파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요파에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 예수는 제혁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가디아라는 필리스틴 사람 통역자를 만났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노드의 대리상(代理商)들이 이 시몬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고노드와 그의 아들은 케자리아로 가는 길에 이 시몬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요파에 머무는 동안 예수와 가디아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 젊은 필리스틴 사람은 진리 탐구자였다. 예수는 진리 수여자였으

Corinth. From Athens they went to Ephesus by way of Troas. From Ephesus they sailed for Cyprus, putting in at Rhodes on the way. They spent considerable time visiting and resting on Cyprus and then sailed for Antioch in Syria. From Antioch they journeyed south to Sidon and then went over to Damascus. From there they traveled by caravan to Mesopotamia, passing through Thapsacus and Larissa. They spent some time in Babylon, visited Ur and other places, and then went to Susa. From Susa they journeyed to Charax, from which place Gonod and Ganid embarked for India.

130:0.4 (1427.4) It was while working four months at Damascus that Jesus had picked up the rudiments of the language spoken by Gonod and Ganid. While there he had labored much of the time on translations from Greek into one of the languages of India, being assisted by a native of Gonod's home district.

130:0.5 (1427.5) On this Mediterranean tour Jesus spent about half of each day teaching Ganid and acting as interpreter during Gonod's business conferences and social contacts. The remainder of each day, which was at his disposal, he devoted to making those close personal contacts with his fellow men, those intimate associations with the mortals of the realm, which so characterized his activities during these years that just preceded his public ministry.

130:0.6 (1427.6) From firsthand observation and actual contact Jesus acquainted himself with the higher material and intellectual civilization of the Occident and the Levant; from Gonod and his brilliant son he learned a great deal about the civilization and culture of India and China, for Gonod, himself a citizen of India, had made three extensive trips to the empire of the yellow race.

130:0.7 (1427.7) Ganid, the young man, learned much from Jesus during this long and intimate association. They developed a great affection for each other, and the lad's father many times tried to persuade Jesus to return with them to India, but Jesus always declined, pleading the necessity for returning to his family in Palestine.

1. AT JOPPA — DISCOURSE ON JONAH

130:1.1 (1428.1) During their stay in Joppa, Jesus met Gadiah, a Philistine interpreter who worked for one Simon a tanner. Gonod's agents in Mesopotamia had transacted much business with this Simon; so Gonod and his son desired to pay him a visit on their way to Caesarea. While they tarried at Joppa, Jesus and Gadiah became warm friends. This young Philistine was a truth seeker. Jesus was a truth giver; he was the truth for that

며; 그 세대 동안에는 유란시아에서 진리 그 자체였다. 위대한 진리 탐구자와 위대한 진리 수여자가 만날 때, 그 결과는 새로운 진리의 체험에서 탄생되는 어떤 위대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주는 깨우침이 된다.

어느 날 저녁식사를 마친 뒤, 예수와 필리스틴 청년은 해변을 거닐었으며, 가디아는 이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이 히브리 역사에 정통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나가 타르쉬시로 가는 불행한 항해를 위해 승선했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그 배를 가리켰다. 그는 설명을 마치면서,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실제로 요나를 삼켰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예수는, 이 젊은이의 일생이 이러한 전통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것이 임무로부터 도망치는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수는 가디아의 실천적인 생활을 위한 현실적 동기를 이루는 토대를 갑자기 무너뜨릴만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친구여,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요나들이며, 우리가 삶에서의 현재의 의무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혹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진리와 정의(正義)의 기세로 지도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력의 직접적인 통제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진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을-저버린 그런 요나들이 가슴을 돌이켜 그 절망의 수렁에서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선함을 탄원하지 않는 한, 빛과 생명의 봉사에서 도피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기심이라는, 다루기 힘든 고래들과 비참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낙심된 혼들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고자 열망—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정의에 대한 갈증—할 때에는, 아무 것도 그들을 더 이상 붙잡아 매어 둘 수 없다. 그들이 빠진 수렁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빛을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느님의 영이 그들을 그 수렁에서 구원할 것이며, 일생을 둘러싼 악한 환경이 그들을 토해내어 그들은 다시 새로워진 봉사와 현명한 삶을 위한 신선한 기회의 마른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가디아는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었고 그들은 밤이 깊도록 해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되었으며, 도르가의 집에서 어느 날 저녁에 베드로와 인상적인 토론을 벌였던 가디아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디아는, 부유한 가족 상인 시몬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예수가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동료 필사자들과 함께 하였던 개인적 행적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가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이것이

generation on Urantia. When a great truth seeker and a great truth giver meet, the result is a great and liberating enlightenment born of the experience of new truth.

130:1.2 (1428.2) One day after the evening meal Jesus and the young Philistine strolled down by the sea, and Gadhiah, not knowing that this “scribe of Damascus” was so well versed in the Hebrew traditions, pointed out to Jesus the ship landing from which it was reputed that Jonah had embarked on his ill-fated voyage to Tarshish. And when he had concluded his remarks, he asked Jesus this question: “But do you suppose the big fish really did swallow Jonah?” Jesus perceived that this young man’s life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is tradition, and that its contemplation had impressed upon him the folly of trying to run away from duty; Jesus therefore said nothing that would suddenly destroy the foundations of Gadhiah’s present motivation for practical living. In answering this question, Jesus said: “My friend, we are all Jonahs with lives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and at all times when we seek to escape the present duty of living by running away to far-off enticements, we thereby put ourselves in the immediate control of those influences which are not directed by the powers of truth and the forces of righteousness. The flight from duty is the sacrifice of truth. The escape from the service of light and life can only result in those distressing conflicts with the difficult whales of selfishness which lead eventually to darkness and death unless such God-forsaking Jonahs shall turn their hearts, even when in the very depths of despair, to seek after God and his goodness. And when such disheartened souls sincerely seek for God —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there is nothing that can hold them in further captivity. No matter into what great depths they may have fallen, when they seek the light with a whole heart, the spirit of the Lord God of heaven will deliver them from their captivity; the evil circumstances of life will spew them out upon the dry land of fresh opportunities for renewed service and wiser living.”

130:1.3 (1428.3) Gadhiah was mightily moved by Jesus’ teaching, and they talked long into the night by the seaside, and before they went to their lodgings, they prayed together and for each other. This was the same Gadhiah who listened to the later preaching of Peter, became a profound believer in Jesus of Nazareth, and held a memorable argument with Peter one evening at the home of Dorcas. And Gadhiah had very much to do with the final decision of Simon, the wealthy leather merchant, to embrace Christianity.

130:1.4 (1428.4) (In this narrative of the personal work of Jesus with his fellow mortals on this tour of the Mediterranean, we shall, in accordance with our

쓰이던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유란시아의 현대적 언어로 그의 말들을 자유롭게 번역할 것이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가디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선(善)과 악(惡)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필리스틴 청년은 세상에 선과 악이 병행하여 현존하고 있으니 불공정하다는 느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하느님이 무한히 선하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하여금 악으로 인한 슬픔을 겪게 내버려두시는지요? 결국 악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과 악 둘 모두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예수는 그 같은 잘못을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그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여,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므로; 그는 선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의 선함은 너무나 크고 실재여서, 악으로 인한 사소하고도 비(非)실체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하느님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정적인 악이 남아있을 소지가 절대적으로 없다. 악은, 선에 저항하고 아름다움을 거부하며 진리에 불충하는 무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선택이며 경솔한 실수이다. 악은 단지 미숙함에서 오는 부적응이거나, 혹은 무지에서 오는 분열시키고 왜곡시키는 영향력일 뿐이다. 악은 어리석게 빛을 거부한 결과로 수반되는 필연적인 어두움이다. 악은 어둡고 거짓된 것이며,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고의적으로 시인될 때 죄가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는, 진리와 잘못들 중에서 선택하는 힘을 너희들에게 자질로서 부여주심으로써, 빛과 생명의 긍정적 길에서의 부정적 잠재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악에서의 그러한 잘못은, 지능 창조체들이 일생에서의 길을 잘못 선택함으로, 그러한 것들의 실존을 뜻하기로 정할 때까지는,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떤 뜻대로 하는 반역적 창조체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면 그로 인하여, 그것들은 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수확의 시기까지 알곡과 쭉정이 함께 자라고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선과 악을 생명의 끝날 까지 함께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이유이다.” 가디아는 그 뒤에 이어진 자기들의 토론들을 통하여 이러한 중요한 말들의 실제 의미들을 마음속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자, 자기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에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다.

제 2 장. 케자리아에서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타고 가려던 배의 커다란 노 중에 하나가 쪼개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오래 케자리아에 머물러 있었다. 선장은 새로운 노가 만들어질 동안 항구에서 정박해 있기로 결정하였다. 이 일을 맡아서 할 숙련된 목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자원해서 그 일을 도와주었다. 저녁시간 동안에는 예수와 그의 친구들이 항구 주위에서 산책로로 쓰이는 아름다운 제방 위를 걸어 다녔다. 가니드는 도시의 수리(水利) 체계와 또한

permission, freely translate his words into modern phraseology current on Urantia at the time of this presentation.)

130:1.5 (1429.1) Jesus' last visit with Gadiab had to do with a discussion of good and evil. This young Philistine was much troubled by a feeling of injustice because of the presence of evil in the world alongside the good. He said: "How can God, if he is infinitely good, permit us to suffer the sorrows of evil; after all, who creates evil?" It was still believed by many in those days that God creates both good and evil, but Jesus never taught such error. In answering this question, Jesus said: "My brother, God is love; therefore he must be good, and his goodness is so great and real that it cannot contain the small and unreal things of evil. God is so positively good that there is absolutely no place in him for negative evil. Evil is the immature choosing and the unthinking misstep of those who are resistant to goodness, rejectful of beauty, and disloyal to truth. Evil is only the misadaptation of immaturity or the disruptive and distorting influence of ignorance. Evil is the inevitable darkness which follows upon the heels of the unwise rejection of light. Evil is that which is dark and untrue, and which, when consciously embraced and willfully endorsed, becomes sin.

130:1.6 (1429.2) "Your Father in heaven, by endowing you with the power to choose between truth and error, created the potential negative of the positive way of light and life; but such errors of evil are really nonexistent until such a time as an intelligent creature wills their existence by mischoosing the way of life. And then are such evils later exalted into sin by the knowing and deliberate choice of such a willful and rebellious creature. This is why our Father in heaven permits the good and the evil to go along together until the end of life, just as nature allows the wheat and the tares to grow side by side until the harvest." Gadiab was fully satisfied with Jesus' answer to his question after their subsequent discussion had made clear to his mind the real meaning of these momentous statements.

2. AT CAESAREA

130:2.1 (1429.3) Jesus and his friends tarried in Caesarea beyond the time expected because one of the huge steering paddles of the vessel on which they intended to embark was discovered to be in danger of cleaving. The captain decided to remain in port while a new one was being made. There was a shortage of skilled woodworkers for this task, so Jesus volunteered to assist. During the evenings Jesus and his friends strolled about on the beautiful wall which served as a promenade

조수를 이용해서 도로와 하수도를 씻어 내리도록 꾸며진 기법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젊은 인도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신전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으며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그 위에 서 있었다. 그곳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그 세 사람은 좌석이 2만 개나 되는 거대한 원형극장의 공연에 참석하였으며, 그 날 밤에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그리스 연극을 보러 갔다. 이러한 것들은 가니드가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들이었으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케사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수도였고 로마 행정관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셋째 날 아침에 총독의 관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 몽고에서 온 한 상인이 묵고 있었고, 극동(極東)에서 온 이 사람은 그리스어에 유창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그를 만났다. 그 사람은 예수의 일생의 철학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매일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일생을 누리는 것”에 관한 그의 지혜로운 말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상인은 도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우주적 신(神)의 교리를 깊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몽고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 진보된 진리들을 자신의 이웃과 동반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의 장남은 도교의 제관(祭官)이 되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 젊은이는 이 진보된 진리가 널리 펼쳐지도록 일생동안 애를 썼고,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유일신 하느님—하늘의 최극 통치자—에 대한 교리에 헌신적으로 충성하였다.

필라델피아에 그 본부를 둔 초기 그리스도교의 동쪽 지류(支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태도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바울과 같은 태도로 인도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으며, 그 곳의 영적 토양은 그 때 이미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육토로 되어 있었다. 필라델피아인 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들 예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이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서방에서 이룩했던 것과 똑같이, 즉각적이고도 효력이 있는 호소를 이루어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키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젊은이가, 그들이 조선소에서 고된 일을 하는 동안 예수가 시간 시간마다 이따금씩 내 던지는 말에, 하루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넉넉히 비쳤을 때, 이 젊은 그리스인 아낙산드는, “만약 하느님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이 무자

around the port. Ganid greatly enjoyed Jesus' explanation of the water system of the city and the technique whereby the tides were utilized to flush the city's streets and sewers. This youth of India was much impressed with the temple of Augustus, situated upon an elevation and surmounted by a colossal statue of the Roman emperor. The second afternoon of their stay the three of them attended a performance in the enormous amphitheater which could seat twenty thousand persons, and that night they went to a Greek play at the theater. These were the first exhibitions of this sort Ganid had ever witnessed, and he asked Jesus many questions about them. On the morning of the third day they paid a formal visit to the governor's palace, for Caesarea was the capital of Palestine and the residence of the Roman procurator.

130:2.2 (1429.4) At their inn there also lodged a merchant from Mongolia, and since this Far-Easterner talked Greek fairly well, Jesus had several long visits with him. This man was much impressed with Jesus' philosophy of life and never forgot his words of wisdom regarding “the living of the heavenly life while on earth by means of daily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This merchant was a Taoist, and he had thereby become a strong believer in the doctrine of a universal Deity. When he returned to Mongolia, he began to teach these advanced truths to his neighbors and to his business associates, and as a direct result of such activities, his eldest son decided to become a Taoist priest. This young man exerted a great influence in behalf of advanced truth throughout his lifetime and was followed by a son and a grandson who likewise were devotedly loyal to the doctrine of the One God — the Supreme Ruler of Heaven.

130:2.3 (1430.1) While the eastern branch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having its headquarters at Philadelphia, held more faithfully to the teachings of Jesus than did the Jerusalem brethren, it was regrettable that there was no one like Peter to go into China, or like Paul to enter India, where the spiritual soil was then so favorable for planting the seed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These very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held by the Philadelphians, would have made just such an immediate and effective appeal to the minds of the spiritually hungry Asiatic peoples as did the preaching of Peter and Paul in the West.

130:2.4 (1430.2) One of the young men who worked with Jesus one day on the steering paddle became much interested in the words which he dropped from hour to hour as they toiled in the shipyard. When Jesus intimated that the Father in heaven was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his children on earth, this young Greek, Anaxand, said: “If the Gods are interested in me, then why

비하고 부당한 십장(什長)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는 예수에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마도 하느님들은 네가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알고 있고 공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더 좋은 이러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게 가까이 두는 것 같다. 아마 네가 이 형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더욱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금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네가 아직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이 너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길에서 너의 주인이 되고 있다. 너는 왜, 선의 힘에 기대어 악에 대한 너의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여 그로서 너희들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예언하건대, 네가 만약 네 안에 있는 선이 제대로 살아날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그 선이 악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사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잘못과 악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영적 에너지와 그리고 신성한 진리와 손을 잡고 일하는 기쁨보다, 더 신나는 모험은 아무 것도 없다. 영적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영적 빛의 살아있는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은 놀랍고도 그리고 변환이 일어나는 체험이다. 만약 네가 이 사람보다 진리에 대한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의 부족함은 너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너는,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그대로 바닷가에 서 있을 겁쟁이는 분명히 아니다! 물 속에 빠져 죽어가는 육체와 비교해 볼 때,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의 혼은 얼마나 더 많은 가치가 있겠느냐!"

아낙산드는 예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윽고 그는 예수에 한 말을 자기 상급자에게 전했고, 그날 밤 그 둘은 자신들 혼의 행복을 위해 예수에게 충고를 구했다. 그리고 뒷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케자리아에 전파되었을 때, 한 사람은 그리스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인인 이 두 사람은, 모두 빌립의 설교를 믿고 빌립이 설립한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었다. 후에 이 젊은 그리스인은 로마군 백부장인 코넬리우스의 청지기가 되었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 아낙산드는 바울이 케자리아에서 감옥에 갇히는 날까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전했으며, 그러다가 그는 2만 명 유대인 대학살 사건 당시 고통 받는 이들과 죽어 가는 이들을 위해 일하던 중에, 그 자신도 사고로 죽었다.

이 무렵에 가니드는, 자신의 선생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러한 유별난 개인적 사명활동에서 어떻게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기 시작하였으며, 그 젊은 인도인은 예수에 이러한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동기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왜 그토록 끊임없이 몰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하느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낯선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체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새로 발견한 형제를 만나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보이는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사

do they not remove the cruel and unjust foreman of this workshop?" He was startled when Jesus replied, "Since you know the ways of kindness and value justice, perhaps the Gods have brought this erring man near that you may lead him into this better way. Maybe you are the salt which is to make this brother more agreeable to all other men; that is, if you have not lost your savor. As it is, this man is your master in that his evil ways unfavorably influence you. Why not assert your mastery of evil by virtue of the power of goodness and thus become the master of all relations between the two of you? I predict that the good in you could overcome the evil in him if you gave it a fair and living chance. There is no adventure in the course of mortal existence more enthralling than to enjoy the exhilaration of becoming the material life partner with spiritual energy and divine truth in one of their triumphant struggles with error and evil. It is a marvelous and transforming experience to become the living channel of spiritual light to the mortal who sits in spiritual darkness. If you are more blessed with truth than is this man, his need should challenge you. Surely you are not the coward who could stand by on the seashore and watch a fellow man who could not swim perish! How much more of value is this man's soul floundering in darkness compared to his body drowning in water!"

130:2.5 (1430.3) Anaxand was mightily moved by Jesus' words. Presently he told his superior what Jesus had said, and that night they both sought Jesus' advice as to the welfare of their souls. And later on, after the Christian message had been proclaimed in Caesarea, both of these men, one a Greek and the other a Roman, believed Philip's preaching and became prominent members of the church which he founded. Later this young Greek was appointed the steward of a Roman centurion, Cornelius, who became a believer through Peter's ministry. Anaxand continued to minister light to those who sat in darkness until the days of Paul's imprisonment at Caesarea, when he perished, by accident, in the great slaughter of twenty thousand Jews while he ministered to the suffering and dying.

130:2.6 (1431.1) Ganid was, by this time, beginning to learn how his tutor spent his leisure in this unusual personal ministry to his fellow men, and the young Indian set about to find out the motive for these incessant activities. He asked, "Why do you occupy yourself so continuously with these visits with strangers?" And Jesus answered: "Ganid, no man is a stranger to one who knows God. In the experience of finding the Father in heaven you discover that all men are your brothers, and does it seem strange that one should enjoy the exhilaration of meeting a newly discovered brother? To become acquainted with one's brothers and sisters, to know their problems and

귀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최극 체험이 된다.”

이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그러는 중에 그 젊은이는, 하느님의 뜻과, 의지라고 불리는 선택을 이루는 인간 마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수에게 물었다. 예수가 말한 요지는 이러하였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길, 어떤 잠재적인 양자택일에 직면하였을 때 하느님의 선택과 동반자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점점 더 하느님처럼 되어 가는 진보의 체험이며, 하느님은 모든 선(善)하고, 아름답고(美), 참된(眞) 것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길이며, 그것은 되고자하고 하고자하는 필사자의 선택의 총합(總合)이자 본질체이다. 의지는 지능적인 반영에 기초를 두고, 결정-행위로 인도하는 자아-의식 존재의 고의적인 선택이다.

그 날 오후 예수와 가니드는 아주 영리한 목양견(牧羊犬) 한 마리와 즐겁게 놀았는데, 가니드는 문득 개도 혼을 갖고 있으며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가니드가 예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개는 자기 주인, 물질적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영(靈)이신 하느님을 알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는 영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영적 체험도 즐길 수 없다. 개는, 본능에서 나오며 훈련으로 증강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의 힘은 영적 기세도 아니며, 더욱이 그것은 반영적이 아니기 때문에—그것은 보다 고상하고 도덕적인 의미들을 분별한 결과도 아니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을 선택한 결과도 아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될 수 없다.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존재, 영적인 책임을 갖는 속성과 영원한 생존의 잠재력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창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동물에게는 그런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발전시킨다거나 영원에서의 개인성 생존과 동등한 어떤 것을 체험하기란 언제까지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그 날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니드는 사람의 혼이 동물의 몸속에 윤회된다는 믿음을 다시는 갖지 않게 되었다.

다음 날 가니드는 자기 부친과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고노드의 질문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동물적 실존에서의 물질 문제를 행하려고 내리는 일시적인 결정들로 온통 몰두되어 있는 인간 의지는 때가 되면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소. 전심을 다해서 내린 도덕적 결정과 분별불가적인 영적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은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점차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생존의 가치들—신성한 봉사의 끝남이 없는 진보—속으로 점점 더 변환되어 가는 것이요.”

to learn to love them, is the supreme experience of living.”

130:2.7 (1431.2) This was a conference which lasted well into the night, in the course of which the young man requested Jesus to tell him the difference between the will of God and that human mind act of choosing which is also called will. In substance Jesus said: The will of God is the way of God, partnership with the choice of God in the face of any potential alternative. To do the will of God, therefore, is the progressive experience of becoming more and more like God, and God is the source and destiny of all that is good and beautiful and true. The will of man is the way of man, the sum and substance of that which the mortal chooses to be and do. Will is the deliberate choice of a self-conscious being which leads to decision-conduct based on intelligent reflection.

130:2.8 (1431.3) That afternoon Jesus and Ganid had both enjoyed playing with a very intelligent shepherd dog, and Ganid wanted to know whether the dog had a soul, whether it had a will, and in response to his questions Jesus said: “The dog has a mind which can know material man, his master, but cannot know God, who is spirit; therefore the dog does not possess a spiritual nature and cannot enjoy a spiritual experience. The dog may have a will derived from nature and augmented by training, but such a power of mind is not a spiritual force, neither is it comparable to the human will, inasmuch as it is not reflective — it is not the result of discriminating higher and moral meanings or choosing spiritual and eternal values. It is the possession of such powers of spiritual discrimination and truth choosing that makes mortal man a moral being, a creature endowed with the attributes of spiritual responsibility and the potential of eternal survival.” Jesus went on to explain that it is the absence of such mental powers in the animal which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 animal world to develop language in time or to experience anything equivalent to personality survival in eternity. As a result of this day’s instruction Ganid never again entertained belief in the transmigration of the souls of men into the bodies of animals.

130:2.9 (1431.4) The next day Ganid talked all this over with his father, and it was in answer to Gonod’s question that Jesus explained that “human wills which are fully occupied with passing only upon temporal decisions having to do with the material problems of animal existence are doomed to perish in time. Those who make wholehearted moral decisions and unqualified spiritual choices are thus progressively identified with the indwelling and divine spirit, and thereby are they increasingly transformed into the values of eternal survival — unending progression of divine service.”

바로 그 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진리를 처음 들었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지란, 주관적 의식이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고, 하느님과-닮음이 되고 싶은 열망의 현상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는 인간 마음의 현시활동이다.” 그리고 모든 반영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기능을 하는 인간이 창조적으로 된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의미이다.

제 3 장. 알렉산드리아에서

케사리아의 사건 많은 방문은 매우 뜻 깊은 것이었고, 배가 준비되자, 예수와 그의 두 친구들은 어느 날 정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 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향해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그 항해를 매우 즐겼으며, 예수는 그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바빴다. 그들이 항구에 다가가자 가니드는 파로스의 거대한 등대를 보고 흥분하였는데, 그 등대는 알렉산더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본토를 연결시켜 놓은 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는 또한 두 개의 커다란 항구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상무역의 교차로 구실을 하게 하였다. 이 거대한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不可思議) 중의 하나였고, 후대의 모든 등대들의 기원이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 장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났고, 가니드가 감탄사를 연발하는 동안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아이야, 네가 인도로 돌아가면 네 부친이 돌아가신 후일지라도 이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주위 사람들의 빛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길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니드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사들이 로마 세계라는 서방 문명권에만 집중적으로 그들의 주의를 기울인 것은 커다란 오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예수의 가르침들이 1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자들에 의해 간직되었던 것처럼, 아시아 종교인들의 여러 집단들에 의해서도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항구에 도착한지 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길고 넓은 도로, 폭은 30미터이고 길이는 5마일 정도 되고,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 도시의 서쪽 끝까지 뻗어 있는 큰길의 동쪽 끝부분 가까운 장소에 숙박 장소를 정하였다. 그 도시에서 제일 볼만한 것들—대학(박물관), 도서관, 알렉산더의 왕릉, 궁전, 바다의 왕 넵튠 신전, 극장, 체육관—을 먼저 돌아본 후에, 고노드는 자신의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하였고, 예수와 가니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모든 문명세계;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파르티아,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가져온 거의 100만 권에 이르는

130:2.10 (1431.5) It was on this same day that we first heard that momentous truth which, stated in modern terms, would signify: “Will is that manifestation of the human mind which enables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to express itself objectively and to experience the phenomenon of aspiring to be Godlike.” And it is in this same sense that every reflective and spiritually minded human being can become *creative*.

3. AT ALEXANDRIA

130:3.1 (1432.1) It had been an eventful visit at Caesarea, and when the boat was ready, Jesus and his two friends departed at noon one day for Alexandria in Egypt.

130:3.2 (1432.2) The three enjoyed a most pleasant passage to Alexandria. Ganid was delighted with the voyage and kept Jesus busy answering questions. As they approached the city's harbor, the young man was thrilled by the great lighthouse of Pharos, located on the island which Alexander had joined by a mole to the mainland, thus creating two magnificent harbors and thereby making Alexandria the maritime commercial crossroads of Africa, Asia, and Europe. This great lighthouse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and was the forerunner of all subsequent lighthouses. They arose early in the morning to view this splendid lifesaving device of man, and amidst the exclamations of Ganid Jesus said: “And you, my son, will be like this lighthouse when you return to India, even after your father is laid to rest; you will become like the light of life to those who sit about you in darkness, showing all who so desire the way to reach the harbor of salvation in safety.” And as Ganid squeezed Jesus' hand, he said, “I will.”

130:3.3 (1432.3) And again we remark that the early teach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made a great mistake when they so exclusiv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western civilization of the Roman world. The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held by the Mesopotamian believers of the first century, would have been readily received by the various groups of Asiatic religionists.

130:3.4 (1432.4) By the fourth hour after landing they were settled near the eastern end of the long and broad avenue, one hundred feet wide and five miles long, which stretched on out to the western limits of this city of one million people. After the first survey of the city's chief attractions — university (museum), library, the royal mausoleum of Alexander, the palace, temple of Neptune, theater, and gymnasium — Gonod addressed himself to business while Jesus and Ganid went to the library, the greatest in the world. Here were assembled nearly a million manuscripts from all

는 서적들이 모여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 가니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 문헌들을 보았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이곳에서 히브리 경전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일에 관해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였으며, 그 때마다 예수는 이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 이 젊은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야훼는 멜기세덱의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발생된 하느님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중에는 멜기세덱이 살았고 가르쳤으며 모든 세계들에 선생들을 보낸 중심지였던 이 땅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종교는 다른 어떤 세계 종교들보다,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주 아버지로서 훨씬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가니드는 예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주적 신(神)을 인정하는 모든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들이 비록 다른 한 편으로는 종속적인 신(神)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종합해 보았다.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토론 끝에, 로마인들은 그들의 종교 속에 실제적인 하느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종교는 거의 황제 경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철학을 갖고 있을 뿐 개인적 하느님을 가진 종교는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신비 예배종파의 경우에는, 많은 신(神)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데다가, 신(神)들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개념도 다른 종교 또는 더 고대의 종교들로부터 파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시켰다.

비록 이 해석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으나, 가니드가 최종적으로 선별작업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개인적 결론들을 첨가한 것은, 로마에서의 체류기간이 다 끝나 갈 무렵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문헌들의 저자들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원한 하느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하느님의 성격과 필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다.

예수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박물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박물관은 희귀한 물건들을 수집해 놓은 곳이라기보다는 미술, 과학, 문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에 더 가까웠다. 그곳에서는 학식 있는 교수들이 매일 강의를 하였고, 당시에는 이곳이 서양 세계의 지적(知的) 중심지였다. 예수는 날마다 가니드에게 그 강의를 해석해 주었다; 1주일째 되던 어느 날 가니드는 큰소리로 말하였다: “여호수아 선생님, 당신은 이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해준 위대한 것들을 일어나서 그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생각으로 인해 흐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드려서 이 일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칭찬 받을 학생이지만, 이 선생들은 너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the civilized world: Greece, Rome, Palestine, Parthia, India, China, and even Japan. In this library Ganid saw the largest collection of Indian literature in all the world; and they spent some time here each day throughout their stay in Alexandria. Jesus told Ganid about the translation of the Hebrew scriptures into Greek at this place. And they discussed again and again all the religions of the world, Jesus endeavoring to point out to this young mind the truth in each, always adding: “But Yahweh is the God developed from the revelations of Melchizedek and the covenant of Abraham. The Jews were the offspring of Abraham and subsequently occupied the very land wherein Melchizedek had lived and taught, and from which he sent teachers to all the world; and their religion eventually portrayed a clearer recognition of the Lord God of Israel as the Universal Father in heaven than any other world religion.”

130:3.5 (1432.5) Under Jesus' direction Ganid made a collection of the teachings of all those religions of the world which recognized a Universal Deity, even though they might also give more or less recognition to subordinate deities. After much discussion Jesus and Ganid decided that the Romans had no real God in their religion, that their religion was hardly more than emperor worship. The Greeks, they concluded, had a philosophy but hardly a religion with a personal God. The mystery cults they discarded because of the confusion of their multiplicity, and because their varied concepts of Deity seemed to be derived from other and older religions.

130:3.6 (1433.1) Although these translations were made at Alexandria, Ganid did not finally arrange these selections and add his own personal conclusions until near the end of their sojourn in Rome. He was much surprised to discover that the best of the authors of the world's sacred literature all more or less clear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God and were much in agreement with regard to his character and his relationship with mortal man.

130:3.7 (1433.2) Jesus and Ganid spent much time in the museum during their stay in Alexandria. This museum was not a collection of rare objects but rather a university of fine art, science, and literature. Learned professors here gave daily lectures, and in those times this was the intellectual center of the Occidental world. Day by day Jesus interpreted the lectures to Ganid; one day during the second week the young man exclaimed: “Teacher Joshua, you know more than these professors; you should stand up and tell them the great things you have told me; they are befogged by much thinking. I shall speak to my father and have him arrange it.” Jesus smiled, saying: “You are an admiring pupil, but these teachers are not minded that you and I should

영성화 되지 못하는 배움의 자부심은 인간 체험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참된 선생은 언제나 배우는 자로 남음으로써 지적인 고결한-순수성을 유지한다.”

알렉산드리아는 서양의 모든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고, 로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격조 높은 도시였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 알렉산드리아 산헤드린의 행정 중심부인 70명의 통치하는 장로들이 있었다.

고노드가 사업상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알렉산드리아는 한 유대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의 형제인 필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종교 철학자였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화시키는 훌륭한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가니드와 예수는 필로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강의에 참석하려고 계획했지만, 이 유명한 그리스 파 유대인은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내내 병석에 누워 있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서 많은 것들을 칭찬하였지만, 자기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불확실한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 체계들은,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도록 그리고 영원한 분을 아는 살아있는 체험을 즐기도록 인도해줄 때에만 종교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젊은이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었다.

제 4 장. 실체에 관한 강연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날 밤 가니드와 예수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강의하는 정부 소속 교수들 중 한 사람과 그 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만났다. 예수는 박식한 그 그리스인 교수의 말을 통역했지만, 그리스 철학에 반박하는 입장으로서의 자신의 가르침은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고노드는 그 날 밤 사업 관계로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교수가 자리를 떠나자 그 선생과 그의 제자는 플라톤의 학설에 관해 심금을 털어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예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본질적인 영적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는 이론을 다루어야만 했던 그리스 철학의 어떤 가르침에 대하여 분별화되었음을 인정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젊은이의 사고에 좀 더 신뢰할만한 기초를 마련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그는 우주에 있어서의 실체의 본질에 관하여 긴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던 요지를 현대의 언어로 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자이다. 유한한 창조의 물질적인 사물들은 파라다이스 원형틀과 영원한 하느님의 우주 마음의 시간-공간 반향(反響)들이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원인성, 지적 세계에서의 자아-의식, 영적 세계에서의 진보하는 자아신분—우주규모로 구체적으로 투사되고, 영원한 관계성 속에 병합되며, 본질특성의 완전성과 가치

instruct them. The pride of unspiritualized learning is a treacherous thing in human experience. The true teacher maintains his intellectual integrity by ever remaining a learner.”

130:3.8 (1433.3) Alexandria was the city of the blended culture of the Occident and next to Rome the largest and most magnificent in the world. Here was located the largest Jewish synagogue in the world, the seat of government of the Alexandria Sanhedrin, the seventy ruling elders.

130:3.9 (1433.4) Among the many men with whom Gonod transacted business was a certain Jewish banker, Alexander, whose brother, Philo, was a famous religious philosopher of that time. Philo was engaged in the laudable but exceedingly difficult task of harmonizing Greek philosophy and Hebrew theology. Ganid and Jesus talked much about Philo's teachings and expected to attend some of his lectures, but throughout their stay at Alexandria this famous Hellenistic Jew lay sick abed.

130:3.10 (1433.5) Jesus commended to Ganid much in the Greek philosophy and the Stoic doctrines, but he impressed upon the lad the truth that these systems of belief, like the indefinite teachings of some of his own people, were religions only in the sense that they led men to find God and enjoy a living experience in knowing the Eternal.

4. DISCOURSE ON REALITY

130:4.1 (1433.6) The night before they left Alexandria Ganid and Jesus had a long visit with one of the government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who lectured on the teachings of Plato. Jesus interpreted for the learned Greek teacher but injected no teaching of his own in refutation of the Greek philosophy. Gonod was away on business that evening; so, after the professor had departed, the teacher and his pupil had a long and heart-to-heart talk about Plato's doctrines. While Jesus gave qualified approval of some of the Greek teachings which had to do with the theory that the material things of the world are shadowy reflections of invisible but more substantial spiritual realities, he sought to lay a more trustworthy foundation for the lad's thinking; so he began a long dissertation concerning the nature of reality in the universe. In substance an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said to Ganid:

130:4.2 (1434.1) The source of universe reality is the Infinite. The material things of finite creation are the time-space repercussions of the Paradise Pattern and the Universal Mind of the eternal God. Causation in the physical world, self-consciousness in the intellectual world, and progressing selfhood in the spirit world — these

의 신성(神性)과 함께 체험되는, 이들 실체는—최극자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원인성, 지능, 영 체험에서의 기원적 개인성은, 언제까지나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만물은, 무한한 가치와 신성한 본질특성의 영원한 우주에서 조차도, 모두 변할 수도 있고 또 종종 변하지만, 절대자, 그리고 물질적 지위, 지적인 포용, 다시 말해서 절대인 영적 정체성을 달성한 것은 예외이다.

유한한 창조체가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은, 우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며 최극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최종 운명을 갖는 그러한 존재들은 물리적 세계의 움직임들과 그것의 물질 현상 속에 있어서의 변화를 계속 체험한다. 그들은 또한 영적 우주를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신분의 진보를 여전히 자각하며, 지적 조화우주에 대한 깊어지는 이해와 반응 속에서 의식의 성장을 여전히 인식한다. 오직 완전성, 조화 그리고 의지의 일치 안에서만 창조체는 창조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창조체가 자신의 유한한 개인적 의지를 항상 창조자의 신성한 뜻에 맞추으로써만 시간 속에서나 영원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신성의 상태를 그렇게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의 혼 속에서 언제나 최극이어야 하며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눈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결코 원근(遠近)을 감지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눈밖에 갖지 못한 물질적인 과학자나 영적 신비가나 우화(寓話) 작가는, 우주 실체의 진정한 깊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해할 수 없다. 창조 체험의 모든 진정한 가치들은 인식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마음이 없는 원인성은 조잡하고 단순한 상태에서부터 세련되고 복잡한 상태로 진화할 수 없으며, 또한 영(靈)이 개재되지 않은 체험도 시간에서 필사자들의 물질적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생존되는 신성한 성격으로 진화할 수 없다. 무한한 신(神)의 특성을 매우 배타적으로 나타내는 우주의 한 가지 속성은, 진보적 신(神) 달성 속에서 생존될 수 있는 개인성의 이러한 끝없는 창조적 증여이다.

개인성은 조화우주 자질이고, 우주적 실체의 현상이며, 그것은 무제한한 변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 후로 언제까지나 그러한 모든 변화들의 바로 그 현존 속에 그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생명은 우주 상황들의 요구와 가능성들에 대한 기원적인 조화우주 원인성의 적응이며, 그것은 우주 마음의 행동과 영이신 하느님의 영적 불꽃의 활동에 의해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생명의 의미는 그 적응성에 있다; 생명의 가치는—하느님-의식의 높이까지 이르는—그 진보력에 있다.

realities, projected on a universal scale, combined in eternal relatedness, and experienced with perfection of quality and divinity of value — constitute the *reality of the Supreme*. But in an ever-changing universe the Original Personality of causation, intelligence, and spirit experience is changeless, absolute. All things, even in an eternal universe of limitless values and divine qualities, may, and oftentimes do, change except the Absolutes and that which has attained the physical status, intellectual embrace, or spiritual identity which is absolute.

130:4.3 (1434.2) The highest level to which a finite creature can progress is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knowing of the Supreme. And even then such beings of finality destiny go on experiencing change in the motions of the physical world and in its material phenomena. Likewise do they remain aware of selfhood progression in their continuing ascension of the spiritual universe and of growing consciousness in their deepening appreciation of, and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cosmos. Only in the perfection, harmony, and unanimity of will can the creature become as one with the Creator; and such a state of divinity is attained and maintained only by the creature's continuing to live in time and eternity by consistently conforming his finite personal will to the divine will of the Creator. Always must the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be supreme in the soul and dominant over the mind of an ascending son of God.

130:4.4 (1434.3) A one-eyed person can never hope to visualize depth of perspective. Neither can single-eyed material scientists nor single-eyed spiritual mystics and allegorists correctly visualize and adequately comprehend the true depths of universe reality. All true values of creature experience are concealed in depth of recognition.

130:4.5 (1434.4) Mindless causation cannot evolve the refined and complex from the crude and the simple, neither can spiritless experience evolve the divine characters of eternal survival from the material minds of the mortals of time. The one attribute of the universe which so exclusively characterizes the infinite Deity is this unending creative bestowal of personality which can survive in progressive Deity attainment.

130:4.6 (1434.5) Personality is that cosmic endowment, that phase of universal reality, which can coexist with unlimited change and at the same time retain its identity in the very presence of all such changes, and forever afterward.

130:4.7 (1434.6) Life is an adaptation of the original cosmic causation to the demands and possibilities of universe situations, and it comes into being by the action of the Universal Mind and the activation of the spirit spark of the God who is spirit. The meaning of life is its adaptability; the value of life is

우주에 대한 자아-의식적 생명의 잘못된 적응은 조화우주 부조화를 가져온다. 우주들의 경향으로부터의 개인성 의지의 최종적 이탈은 지적인 고립, 개인성의 격리로 종결된다. 내주하는 영 인도자의 상실은 실존의 영적 단절이 잇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지능적이고 진보하는 생명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저절로, 신성한 창조자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목적을 지닌 우주가 실존하고 있음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주 아버지를 그 최종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총합 안에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투쟁한다.

지능에서의 높고 준(準)-영적 사망활동을 제쳐놓고서, 등급(等級)만을 고려할 때, 사람이 소유하는 마음은 동물 차원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경배와 지혜를 가지지 않는) 의식에 대한 의식인 초(超)의식을 체험할 수 없다. 동물의 마음은 오직 객관적인 우주만을 의식한다.

지식은 물질적인 또는 사실-식별하는 마음의 구체다. 진리는 하느님을 알고있음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자질로서 부여된 지성의 권역이다. 지식은 실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다. 지식은 마음의 소유물이다; 그러나 진리는 혼, 진보하는 자아의 체험이다. 지식은 비(非)영적 차원의 기능이다; 한편 진리는 우주들의 마음-영 차원의 한 위상이다. 물질적 마음의 눈은 사실적인 지식의 세계를 감지한다; 그러나 영성화된 지성의 눈은 참된 가치들의 세계를 식별한다. 동조되고 그리고 조화되는 이들 두 관점들이 실체의 세계를 드러내며, 바로 그곳에서 지혜는 진보하는 개인적 체험에 의하여 우주의 현상들을 해석한다.

잘못(악)은 불완전성의 대가이다. 불완전한 본질특성이나 부적당한 적응의 사실들은, 비판적 관찰과 과학적 분석에 의해 물질적 차원에서 드러나고, 인간 체험에 의해 도덕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악의 현존은 마음의 부정확함과 진화하는 자아의 미성숙함에서 그 증거가 드러난다. 따라서 악은 우주 해석에서의 불완전성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지혜의 획득 속에 즉,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완벽하고 영원한 것으로 또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계획 속에 선천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잘못은 사람이 파라이스의 완전성으로 상승하는 우주 길목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상대적인 미완성에서의 그림자이다. 잘못(악)은 실재하는 우주의 본질특성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최극자와 궁극자의 상승하고 있는 차원들에 대한 미완성 유한자들의 불완전의 관계맺음 안에서 상대성이 관찰되는 것에 불과하다.

비록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그 젊은이가 이해

its progressability — even to the heights of God-consciousness.

130:4.8 (1434.7) Misadaptation of self-conscious life to the universe results in cosmic disharmony. Final divergence of personality will from the trend of the universes terminates in intellectual isolation, personality segregation. Loss of the indwelling spirit pilot supervenes in spiritual cessation of existence. Intelligent and progressing life becomes then, in and of itself, an incontrovertible proof of the existence of a purposeful universe expressing the will of a divine Creator. And this life, in the aggregate, struggles toward higher values, having for its final goal the Universal Father.

130:4.9 (1435.1) Only in degree does man possess mind above the animal level aside from the higher and quasi-spiritual ministrations of intellect. Therefore animals (not having worship and wisdom) cannot experience super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consciousness. The animal mind is only conscious of the objective universe.

130:4.10 (1435.2) Knowledge is the sphere of the material or fact-discerning mind. Truth is the domain of the spiritually endowed intellect that is conscious of knowing God. Knowledge is demonstrable; truth is experienced. Knowledge is a possession of the mind; truth an experience of the soul, the progressing self. Knowledge is a function of the nonspiritual level; truth is a phase of the mind-spirit level of the universes. The eye of the material mind perceives a world of factual knowledge; the eye of the spiritualized intellect discerns a world of true values. These two views, synchronized and harmonized, reveal the world of reality, wherein wisdom interprets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 in terms of progressive personal experience.

130:4.11 (1435.3) Error (evil) is the penalty of imperfection. The qualities of imperfection or facts of misadaptation are disclosed on the material level by critical observation and by scientific analysis; on the moral level, by human experience. The presence of evil constitutes proof of the inaccuracies of mind and the immaturity of the evolving self. Evil is, therefore, also a measure of imperfection in universe interpretation. The possibility of making mistakes is inherent in the acquisition of wisdom, the scheme of progressing from the partial and temporal to the complete and eternal, from the relative and imperfect to the final and perfected. Error is the shadow of relative incompleteness which must of necessity fall across man's ascending universe path to Paradise perfection. Error (evil) is not an actual universe quality; it is simply the observation of a relativity in the relatedness of the imperfection of the incomplete finite to the ascending levels of the Supreme and Ultimate.

130:4.12 (1435.4) Although Jesus told all this to the lad

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그에게 말하였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자 가니드의 눈은 무거워졌고 곧 잠에 떨어졌다. 그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크레테 섬에 있는 라시아로 갔다. 그러나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그 젊은이에게는 악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으며, 예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은 하나의 상대성 개념이다. 그것은 무한자의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우주 표현의 살아있는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조화우주에서처럼, 그렇게 유한한 사물과 존재의 유한 우주로 인하여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성들에 대한 관찰에서 발생한다.

잠재적 악은, 무한과 영원이 시간-공간-제한을 받으면서 표현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계시의 필요되는 미완성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다. 완벽함의 현존 안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이, 실체의 상대성을 구성하고 지적 선택에 대한 필요성을 창조하며 영 인지와 반응이라는 가치 차원들을 수립한다. 일시적이고 한정된 창조체의 마음이 파악하는, 무한자에 대한 미완성이고 유한한 개념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잠재적 악(惡)이다. 그러나 이들 기원적으로 선천적인 지적 부조화와 영적 불충분함에 대한 이치에 맞고 합당한 영적 정화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결함을 증강시키는 잘못된, 실제적 악의 실현과 동등한 것이다.

모든 정적인, 죽어있는 개념들은 잠재적으로 악이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의 유한한 그림자는 계속 움직인다. 정적인 개념들은 변함없이 과학, 정치, 사회, 종교 등의 발전을 지체시킨다. 정적인 개념들은 어떤 지식을 표방하기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성의 개념이 너희를 지나치게 잘못 인도하여 너희가, 조화우주 마음의 지도 아래에 있는 우주의 조화-협동, 그리고 최극자의 영광 에너지로 말미암아 안정되는 통제를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도록 허용하지는 말라.

제 5 장. 크레테 섬에서

이 여행자들은 섬을 산보하거나 등산하면서 단지 즐기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크레테로 갔다. 당시의 크레테 주민들은 그들의 인근 지역으로부터 부러워 할 만한 아무런 평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혼들을 더 높은 차원의 생각과 삶으로 인도하였고, 이것은 후일 예루살렘으로부터 첫 설교자들이 도착하였을 때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빠른 수용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바울은 후일 자신들의 교회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타이투스를 그 섬으로 보내면서 이들에 관해서 가혹한 말을 하였었지만, 예수는 이 크레테 주민들을 사랑하였다.

크레테에 있는 산기슭에서 예수는 종교에 관해 고노드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가졌다. 그 아버

in language best suited to his comprehension,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Ganid was heavy of eye and was soon lost in slumber. They rose early the next morning to go aboard the boat bound for Lasea on the island of Crete. But before they embarked, the lad had still further questions to ask about evil, to which Jesus replied:

130:4.13 (1435.5) Evil is a relativity concept. It arises out of the observation of the imperfections which appear in the shadow cast by a finite universe of things and beings as such a cosmos obscures the living light of the universal expression of the eternal realities of the Infinite One.

130:4.14 (1435.6) Potential evil is inherent in the necessary incompleteness of the revelation of God as a time-space-limited expression of infinity and eternity. The fact of the partial in the presence of the complete constitutes relativity of reality, creates necessity for intellectual choosing, and establishes value levels of spirit recognition and response. The incomplete and finite concept of the Infinite which is held by the temporal and limited creature mind is, in and of itself, *potential evil*. But the augmenting error of unjustified deficiency in reasonable spiritual rectification of these originally inherent intellectual disharmonies and spiritual insufficiencies, is equivalent to the realization of *actual evil*.

130:4.15 (1436.1) All static, dead, concepts are potentially evil. The finite shadow of relative and living truth is continually moving. Static concepts invariably retard science, politics, society, and religion. Static concepts may represent a certain knowledge, but they are deficient in wisdom and devoid of truth. But do not permit the concept of relativity so to mislead you that you fail to recognize the co-ordination of the universe under the guidance of the cosmic mind, and its stabilized control by the energy and spirit of the Supreme.

5. ON THE ISLAND OF CRETE

130:5.1 (1436.2) The travelers had but one purpose in going to Crete, and that was to play, to walk about over the island, and to climb the mountains. The Cretans of that time did not enjoy an enviable reputation among the surrounding peoples. Nevertheless, Jesus and Ganid won many souls to higher levels of thinking and living and thu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quick reception of the later gospel teachings when the first preachers from Jerusalem arrived. Jesus loved these Cretans, notwithstanding the harsh words which Paul later spoke concerning them when he subsequently sent Titus to the island to reorganize their churches.

130:5.2 (1436.3) On the mountainside in Crete Jesus had his first long talk with Gonod regarding

지는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렇게 말하였다. “저 아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믿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는 다마스쿠스에서보다도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노드가 예수에게 자신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처음으로 제의한 것은 바로 이 섬에서 머무는 동안이었으며, 가니드는 예수가 그것에 동의하리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하였다.

어느 날 가니드가 예수에게 왜 대중을 위한 선생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야, 모든 것은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아무리 많은 걱정도 또 그 어떤 조급함의 현시활동도 너를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시간만이, 나무에 달린 풋과일을 저절로 익게 한다. 시간이 흘러가야만, 한 계절이 지나간 뒤에 다음 계절이 오고, 해가 지고 난 후에 해가 뜨는 법이다. 나는 지금 너와 너의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가는 도중이며,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내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손에 온통 달려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니드에게 모세와 그의 40년에 걸친 신중한 기다림과 꾸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페어 항구를 방문한 날 가니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인도에 있는 특권 계급제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불러 일으켰다. 어떤 술 취한 주정꾼이 공공 큰 도로에서 노예 소녀를 괴롭혔다. 예수가 그 소녀의 곤경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달려가서 그 소녀를 미친 사람으로부터 구해내었다. 겁에 질린 소녀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강한 오른팔을 내뻗어 그 사람을 떼어놓은 후, 그가 자신의 화난 주먹을 허공으로 휘두르다가 지칠 때까지 그를 잡고 있었다. 가니드는 예수에 도움을 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류하였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그 소녀는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을 알 수 있었으며,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그 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가 육신을 입었던 그의 전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촉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왜 술 취한 남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물어오는 가니드에게 설명해야 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다. 가니드는, 적어도 그 남자가 소녀를 때린 만큼 그도 역시 때를 맞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religion. And the father was much impressed, saying: “No wonder the boy believes everything you tell him, but I never knew they had such a religion even in Jerusalem, much less in Damascus.” It was during the island sojourn that Gonod first proposed to Jesus that he go back to India with them, and Ganid was delighted with the thought that Jesus might consent to such an arrangement.

130:5.3 (1436.4) One day when Ganid asked Jesus why he had not devoted himself to the work of a public teacher, he said: “My son, everything must await the coming of its time. You are born into the world, but no amount of anxiety and no manifestation of impatience will help you to grow up. You must, in all such matters, wait upon time. Time alone will ripen the green fruit upon the tree. Season follows season and sundown follows sunrise only with the passing of time. I am now on the way to Rome with you and your father, and that is sufficient for today. My tomorrow is wholly in the hands of my Father in heaven.” And then he told Ganid the story of Moses and the forty years of watchful waiting and continued preparation.

130:5.4 (1436.5) One thing happened on a visit to Fair Havens which Ganid never forgot; the memory of this episode always caused him to wish he might do something to change the caste system of his native India. A drunken degenerate was attacking a slave girl on the public highway. When Jesus saw the plight of the girl, he rushed forward and drew the maiden away from the assault of the madman. While the frightened child clung to him, he held the infuriated man at a safe distance by his powerful extended right arm until the poor fellow had exhausted himself beating the air with his angry blows. Ganid felt a strong impulse to help Jesus handle the affair, but his father forbade him. Though they could not speak the girl's language, she could understand their act of mercy and gave token of her heartfelt appreciation as they all three escorted her home. This was probably as near a personal encounter with his fellows as Jesus ever had throughout his entire life in the flesh. But he had a difficult task that evening trying to explain to Ganid why he did not smite the drunken man. Ganid thought this man should have been struck at least as many times as he had struck the girl.

제 6 장. 두려움에 찬 젊은이

그들이 산에 올라가던 중에, 예수는 두려움이 많고 풀이 죽은 한 젊은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적-연합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이는 혼자 있기 위해 그 언덕으로 찾아왔으며; 열등감과 절망감에 더욱 빠져들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적인

6. THE YOUNG MAN WHO WAS AFRAID

130:6.1 (1437.1) While they were up in the mountains, Jesus had a long talk with a young man who was fearful and downcast. Failing to derive comfort and courage from association with his fellows, this youth had sought the solitude of the hills; he had grown up with a feeling of helplessness and

성향은, 그가 12살 때 아버지를 잃고서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의해 증강되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친구여! 이처럼 아름다운 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나? 만약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마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봉사를 제공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 젊은이는 이야기하기를 사양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혼에게 다시 접근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네가 사람들을 피해 이 산으로 올라온 것을 납득할 수 있다; 물론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네가 이 언덕들의 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오솔길들의 방향을 알고 있다면, 혹시 피닉스로 가는데 가장 좋은 길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 젊은이는 현재 이 산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닉스에 이르는 길을 예수에게 말해주는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모든 오솔길들을 땅바닥에 그리면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예수가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정말로 떠나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또한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나는 네가 울적하게 홀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피닉스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을 찾도록 그런 관대한 도움을 너에게서 받아들었는데, 네가 이 산기슭에서 서성이면서 가슴 속에서 간절하게 찾고 있는 운명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바라는 너의 청원에 대하여 내가 그 어떤 대답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별 생각없이 가버리는 것은 과연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여러 번 그 길을 지나다녀서 피닉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역시, 네가 지금 실망을 겪는 희망의, 좌절을 겪는 열망의 도시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원했으므로,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거의 압도 당하여 더듬거림을 참으며, “하지만—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아이야. 말로써가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한 표정으로 나의 가슴에 요청하였다. 애야,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의 실의와 절망의 표정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강한 청원이 있음이 느껴진다. 여기 잠시동안 나와 함께 앉아서, 사람의 형제 신분에서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봉사에서의, 자아의 슬픔에서 사랑 넘치는 행동의 기쁨으로 인도되는, 봉사 오솔길과 행복 고속도로에 관한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때가 되어서 젊은이는 예수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해졌으며,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슬픔과 좌절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 달라고,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예수에게 간청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여! 일어나라! 남자답게 일어서라! 네가 조그만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많은 장애물로 뒤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과 우주에서 큰 것과

inferiority. These natural tendencies had been augmented by numerous difficult circumstances which the lad had encountered as he grew up, notably, the loss of his father when he was twelve years of age. As they met, Jesus said: “Greetings, my friend! why so downcast on such a beautiful day? If something has happened to distress you, perhaps I can in some manner assist you. At any rate it affords me real pleasure to proffer my services.”

130:6.2 (1437.2) The young man was disinclined to talk, and so Jesus made a second approach to his soul, saying: “I understand you come up in these hills to get away from folks; so, of course, you do not want to talk with me, but I would like to know whether you are familiar with these hills; do you know the direction of the trails? and, perchance, could you inform me as to the best route to Phenix?” Now this youth was very familiar with these mountains, and he really became much interested in telling Jesus the way to Phenix, so much so that he marked out all the trails on the ground and fully explained every detail. But he was startled and made curious when Jesus, after saying good-bye and making as if he were taking leave, suddenly turned to him, saying: “I well know you wish to be left alone with your disconsolation; but it would be neither kind nor fair for me to receive such generous help from you as to how best to find my way to Phenix and then unthinkingly to go away from you without making the least effort to answer your appealing request for help and guidance regarding the best route to the goal of destiny which you seek in your heart while you tarry here on the mountainside. As you so well know the trails to Phenix, having traversed them many times, so do I well know the way to the city of your disappointed hopes and thwarted ambitions. And since you have asked me for help, I will not disappoint you.” The youth was almost overcome, but he managed to stammer out, “But — I did not ask you for anything — ” And Jesus, laying a gentle hand on his shoulder, said: “No, son, not with words but with longing looks did you appeal to my heart. My boy, to one who loves his fellows there is an eloquent appeal for help in your countenance of discouragement and despair. Sit down with me while I tell you of the service trails and happiness highways which lead from the sorrows of self to the joys of loving activities in the brotherhood of men and in the service of the God of heaven.”

130:6.3 (1437.3) By this time the young man very much desired to talk with Jesus, and he knelt at his feet imploring Jesus to help him, to show him the way of escape from his world of personal sorrow and defeat. Said Jesus: “My friend, arise! Stand up like a man! You may be surrounded with small enemies and be retarded by many obstacles, but the big things and the real things of

실제적인 것이 네 편에 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땅에서 가장 힘 있고 번영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너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 보아라,—너는 튼튼한 육체와 강인한 근육을 갖고 있다.—너의 육체적 자질은 평균을 넘는다. 물론 네가 이런 산기슭에 앉아서 실제이거나 공상이거나 간에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는 단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 위대한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서둘러 떠난다면, 너는 그 육체를 사용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너의 불행한 자아로부터 달아나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너와 너의 삶의 문제들은 실질적인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한, 너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네 마음이 맑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아라. 너의 강인한 육체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의 마음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맞춰라; 너의 지성이 너를 위해 일하도록 가르쳐라; 생각 없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상태를 이제부터 더 이상 허용하지 마라. 네 마음이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비열한 두려움에-노예로 그리고 속박된 하인으로 패배와 좌절에 끌려왔던 지금까지의 너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느니, 이제부터는 네 마음이 용감한 동맹군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너의 실제적인 성취의 잠재력은 네 안에 살고 있는 영이며, 이 영은 만약 네가 두려움의 족쇄에서 너의 몸을 해방시키고 그로써 살아있는 신앙의 힘-현존에 따라서 너의 영적 본성으로 하여금 비활성이라는 악에서 벗어나는 너의 해방을 시작 하라고 허용한다면, 너의 마음을 촉발시키고 영감을 일으켜 스스로를 통제하고 몸을 활성화할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신앙은 네 가슴 안에서 탄생되는 네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의식 때문에, 네 혼을 넘쳐흐르기까지 즉시 온통 채우는, 새롭고도 모든 것을-지배하는, 너의 동료에 대한 사랑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현존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할 것이다.

“아이야,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신앙의 사람, 용기의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느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다시-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속에 내재하는 생명에게 재조절 되었을 때, 너는 또한 우주에 대해서도 재조절되는 것이다; 너는 다시 태어난 것—영의 탄생—이며, 그러므로 너의 전체 일생은 승리하는 성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걱정은 너를 활기차도록 할 것이다; 실망은 너에게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난관은 네가 도전하도록 할 것이다; 장애물은 네가 자극을 받도록 할 것이다. 젊음이여, 깨어나라! 굶질거리고 도망 다니는 겁쟁이의 일생에 작별을 고하라. 그리고 서둘러 너의 임무로 돌아가서, 육체를 가진 하느님의 아들로써,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기쁨 있는 봉사에 전념하고 영원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뛰어나고 영원한 봉사에 운명 지워진 필사자로서 살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이 젊은이는 나중에 크레테의 그리스도교 영도자가 되었고, 크레테 신자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타이투스에게 긴밀한 협력자가 되었다.

this world and the universe are on your side. The sun rises every morning to salute you just as it does the most powerful and prosperous man on earth. Look — you have a strong body and powerful muscles — your physical equipment is better than the average. Of course, it is just about useless while you sit out here on the mountainside and grieve over your misfortunes, real and fancied. But you could do great things with your body if you would hasten off to where great things are waiting to be done. You are trying to run away from your unhappy self, but it cannot be done. You and your problems of living are real; you cannot escape them as long as you live. But look again, your mind is clear and capable. Your strong body has an intelligent mind to direct it. Set your mind at work to solve its problems; teach your intellect to work for you; refuse longer to be dominated by fear like an unthinking animal. Your mind should be your courageous ally in the solution of your life problems rather than your being, as you have been, its abject fear-slave and the bond servant of depression and defeat. But most valuable of all, your potential of real achievement is the spirit which lives within you, and which will stimulate and inspire your mind to control itself and activate the body if you will release it from the fetters of fear and thus enable your spiritual nature to begin your deliverance from the evils of inaction by the power-presence of living faith. And then, forthwith, will this faith vanquish fear of men by the compelling presence of that new and all-dominating love of your fellows which will so soon fill your soul to overflowing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which has been born in your heart that you are a child of God.

130:6.4 (1438.1) “This day, my son, you are to be reborn, re-established as a man of faith, courage, and devoted service to man, for God’s sake. And when you become so readjusted to life within yourself, you become likewise readjusted to the universe; you have been born again — born of the spirit — and henceforth will your whole life become one of victorious accomplishment. Trouble will invigorate you; disappointment will spur you on; difficulties will challenge you; and obstacles will stimulate you. Arise, young man! Say farewell to the life of cringing fear and fleeing cowardice. Hasten back to duty and live your life in the flesh as a son of God, a mortal dedicated to the ennobling service of man on earth and destined to the superb and eternal service of God in eternity.”

130:6.5 (1438.2) And this youth, Fortune, subsequently became the leader of the Christians in Crete and the close associate of Titus in his labors for the uplift of the Cretan believers.

그 여행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고, 상쾌한 기분으로 어느 날 정오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으며, 키레네에서는 이들을 머물렀다. 이곳에서 예수와 가니드는, 짐을 실은 소달구지에 받쳐서 부상을 입은 루푸스라는 젊은이에게 응급치료를 해주게 되었다. 그들은 그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시몬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한 때 친절을 베풀었던 그 나그네의 십자가를 후일에 로마 병사의 명령에 의해 자신이 대신 지고 가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130:6.6 (1438.3) The travelers were truly rested and refreshed when they made ready about noon one day to sail for Carthage in northern Africa, stopping for two days at Cyrene. It was here that Jesus and Ganid gave first aid to a lad named Rufus, who had been injured by the breakdown of a loaded oxcart. They carried him home to his mother, and his father, Simon, little dreamed that the man whose cross he subsequently bore by orders of a Roman soldier was the stranger who once befriended his son.

제 7 장. 카르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연

7. AT CARTHAGE — DISCOURSE ON TIME AND SPACE

카르타고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자기 동료 여행자들과 함께 사회와 정치와 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훌륭한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가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쿠스에서가 아닌 갈릴리에서 성장한 것도 알게 되었다.

130:7.1 (1438.4) Most of the time en route to Carthage Jesus talked with his fellow travelers about things social, political, and commercial; hardly a word was said about religion. For the first time Gonod and Ganid discovered that Jesus was a good storyteller, and they kept him busy telling tales about his early life in Galilee. They also learned that he was reared in Galilee and not in either Jerusalem or Damascus.

가니드는 그들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매료되었던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예수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의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원한다고 네가 확신하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된 유대인 속담을 인용하였다. —“친구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만 한다.”

130:7.2 (1438.5) When Ganid inquired what one could do to make friends, having noticed that the majority of persons whom they chanced to meet were attracted to Jesus, his teacher said: “Become interested in your fellows; learn how to love them and watch for the opportunity to do something for them which you are sure they want done,” and then he quoted the olden Jewish proverb — “A man who would have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카르타고에서 예수는 미트라교의 사제 한 사람과 불멸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길고도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페르시아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실제로 원하였다. 이 날 그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0:7.3 (1439.1) At Carthage Jesus had a long and memorable talk with a Mithraic priest about immortality, about time and eternity. This Persian had been educated at Alexandria, and he really desired to learn from Jesus. Put into the words of today, in substance Jesus said in answer to his many questions:

시간이란 창조체 의식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현세적 사건들이 흘러내려가는 개울이다. 시간이란, 그것에 따라 사건들이 인식되고 분리되는 연속적-배열에 붙여진 하나의 이름이다. 공간의 우주는 시간-관련 현상으로서, 그것은 파라다이스의 고정된 거주지 바깥에 있는 어떤 내부적 위치로부터 조망되어진다. 시간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간 현상이면서도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과 관계될 때에만 드러난다. 우주들 중의 우주 안에서 파라다이스와 그것의 신(神)들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다. 인간이 사는 세계들에서, 인간 개인성(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이 거주하고 그것에서 기원된)만이 오직, 일시적인 사건들의 물질적 순차를 초월할 수 있는 실체와 물리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130:7.4 (1439.2) Time is the stream of flowing temporal events perceived by creature consciousness. Time is a name given to the succession-arrangement whereby events are recognized and segregated. The universe of space is a time-related phenomenon as it is viewed from any interior position outside of the fixed abode of Paradise. The motion of time is only revealed in relation to something which does not move in space as a time phenomenon.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Paradise and its Deities transcend both time and space. On the inhabited worlds, human personality (indwelt and oriented by the Paradise Father's spirit) is the only physically related reality which can transcend the material

사람과는 달리, 동물들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는 사람에게서도, 그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시야 때문에, 시간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람이 좀 더 상승함에 따라,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한 넓어지는 시야는, 그것의 전체성 속에서 그것이 점점 더 식별되는 그러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건들의 연속체로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이며 완전하게 관계된 순환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 때 사건들을 일직선적인 순차로 의식하였던 것은 점점 더 순환적인 동시성으로 바뀔 것이다.

시간에 의해 조건 지워짐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일곱 가지로 달라진다. 공간은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시간은 공간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공간의 실체를 인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공간은 우주 대상물들의 관계성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단순한 지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니며, 사람이 아는 유일한 것은, 공간을 부분적으로라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점이다. 마음은 물질 대상들에 대한 공간과 관련된 개념과 관계없이 작용할 수 있다. 공간은 창조체 지위의 모든 존재에게 상대적이고 비교적 유한하다. 의식이 일곱 개의 조화우주 규모들에 대한 인식에 가까워질수록, 잠재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은 더욱 궁극위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공간의 잠재는 절대차원에서만 진정한 궁극이다.

우주적 실체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승하고 있고 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조화우주 차원들에서 항상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생존되는 필사자들은 일곱-차원의 우주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성취한다.

물질적으로 기원된 마음이 갖는 시간-공간 개념은, 의식하고 인식하는 개인성이 우주들의 차원들로 상승함에 따라 연속적인 확대들을 겪도록 운명되어 있다. 사람이 실존에 대한 물질적인 면들과 영적인 면들 사이에 개재하는 마음을 획득할 때, 시간-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들은 인식의 본질 특성과 체험의 양에 대해서처럼 함께 거대하게 확대될 것이다. 진보하는 영 개인성의 확대되는 조화우주 개념들은, 의식의 넓이와 통찰력의 깊이들 모두의 증강에 기인한다. 그리고 개인성이 신(神)과-비슷한 초월적 차원들에 이를 때까지, 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시간-공간 개념은 절대자들의 무(無)시간 그리고 무(無)공간 개념들에 점점 더 접근해 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성취의 정도에 맞추어서,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은 절대적 차원에 대한 이 개념들을 선명하게 될 것이다.

sequence of temporal events.

130:7.5 (1439.3) Animals do not sense time as does man, and even to man, because of his sectional and circumscribed view, time appears as a succession of events; but as man ascends, as he progresses inward, the enlarging view of this event procession is such that it is discerned more and more in its wholeness. That which formerly appeared as a succession of events then will be viewed as a whole and perfectly related cycle; in this way will circular simultaneity increasingly displace the onetime consciousness of the linear sequence of events.

130:7.6 (1439.4) There are seven different conceptions of space as it is conditioned by time. Space is measured by time, not time by space. The confusion of the scientist grows out of failure to recognize the reality of space. Space is not merely an intellectual concept of the variation in relatedness of universe objects. Space is not empty, and the only thing man knows which can even partially transcend space is mind. Mind can function independently of the concept of the space-relatedness of material objects. Space is relatively and comparatively finite to all beings of creature status. The nearer consciousness approaches the awareness of seven cosmic dimensions, the more does the concept of potential space approach ultimacy. But the space potential is truly ultimate only on the absolute level.

130:7.7 (1439.5) It must be apparent that universal reality has an expanding and always relative meaning on the ascending and perfecting levels of the cosmos. Ultimately, surviving mortals achieve identity in a seven-dimensional universe.

130:7.8 (1439.6) The time-space concept of a mind of material origin is destined to undergo successive enlargements as the conscious and conceiving personality ascends the levels of the universes. When man attains the mind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planes of existence, his ideas of time-space will be enormously expanded both as to quality of perception and quantity of experience. The enlarging cosmic conceptions of an advancing spirit personality are due to augmentations of both depth of insight and scope of consciousness. And as personality passes on, upward and inward, to the transcendental levels of Deity-likeness, the time-space concept will increasingly approximate the timeless and spaceless concepts of the Absolutes. Relatively, and in accordance with transcendental attainment, these concepts of the absolute level are to be envisioned by the children of ultimate destiny.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로 머문 곳은 말타 섬이었다. 여기에서 예수는,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클라우두스라는 이름의 청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을 깊이 해왔었지만, 다마스쿠스의 서기관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의 대장부로서 일생을 대치하겠으며; 내가 비겁자 노릇을 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의 민족에게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곧 견유학파의 열렬한 사제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베드로와 손을 잡고 로마와 나폴리에서 설교하였고,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스페인에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말타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후에 자신이 세상의 해방자라고 선포한 그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였다.

시라큐스에서 그들은 일주일 전체를 보냈다. 이곳에 그들의 멈춤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이 머문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타락한 유대인인 에즈라의 갱생이었다. 에즈라는 예수의 접근에 매료되었고, 그리고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의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도움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이 되고 싶지만, 하느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하소연했다. 예수는 말하였다: “만약 네가 참으로 하느님을 찾아내고 싶다면, 그 소망 자체가 이미 네가 그를 찾아냈다는 증거이다. 너의 문제는 네가 하느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는 단지 네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너희가 나를 전심을 다해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하며 나를 만나리라.’라는 말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선지자가 다시, ‘나는 너희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가슴을 줄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주님이니,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에 속하겠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임을 알도록 하겠노라,’라고 쓴 것을 읽지 않았는가? 또한 너는 성서에, ‘그가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리하여 혹시 누구라도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옳은 것을 왜곡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의 혼을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빛을 볼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에즈라는 하느님을, 자신의 혼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찾아내었다. 후일에 이 유대인은 어느 부유한 그리스인 개종자와 관계적-연합하면서, 시라큐스에 첫 번째 그리스도교 회회를 건설하였다.

메시나에서 그들은 단지 하루밖에 머물지 못하였지만, 이 기간은 과일 행상을 하는 한 어린 소년의 일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며, 예수는 그 소년에게 과일을 산 대신 생명의 빵을 주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친절하게 바라보면서 하였던 예수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잘 있어라. 나의 소년아.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훌륭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육체를 키우는 것을 배운 뒤에는 혼을 키우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늘

130:8.1 (1440.1) The first stop on the way to Italy was at the island of Malta. Here Jesus had a long talk with a downhearted and discouraged young man named Claudus. This fellow had contemplated taking his life, but when he had finished talking with the scribe of Damascus, he said: “I will face life like a man; I am through playing the coward. I will go back to my people and begin all over again.” Shortly he became an enthusiastic preacher of the Cynics, and still later on he joined hands with Peter in proclaiming Christianity in Rome and Naples, and after the death of Peter he went on to Spain preaching the gospel. But he never knew that the man who inspired him in Malta was the Jesus whom he subsequently proclaimed the world’s Deliverer.

130:8.2 (1440.2) At Syracuse they spent a full week. The notable event of their stop here was the rehabilitation of Ezra, the backslidden Jew, who kept the tavern where Jesus and his companions stopped. Ezra was charmed by Jesus’ approach and asked him to help him come back to the faith of Israel. He expressed his hopelessness by saying, “I want to be a true son of Abraham, but I cannot find God.” Said Jesus: “If you truly want to find God, that desire is in itself evidence that you have already found him. Your trouble is not that you cannot find God, for the Father has already found you; your trouble is simply that you do not know God. Have you not read in the Prophet Jeremiah, ‘You sha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hall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And again, does not this same prophet say: ‘And I will give you a heart to know me, that I am the Lord, and you shall belong to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And have you not also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it says: ‘He looks down upon men, and if any will say: I have sinned and perverted that which was right, and it profited me not, then will God deliver that man’s soul from darkness, and he shall see the light’?” And Ezra found God and to the satisfaction of his soul. Later, this Jew, in association with a well-to-do Greek proselyte, built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Syracuse.

130:8.3 (1440.3) At Messina they stopped for only one day, but that was long enough to change the life of a small boy, a fruit vendor, of whom Jesus bought fruit and in turn fed with the bread of life. The lad never forgot the words of Jesus and the kindly look which went with them when, placing his hand on the boy’s shoulder, he said: “Farewell, my lad, be of good courage as you grow up to manhood and after you have fed the body learn how also to feed the soul. And my Father in heaven will be with you and go before you.” The lad became a devotee of

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년은 미트라교에 들어갔다가 후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드디어 그들은 나폴리에 도착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지인 로마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고노드는 나폴리에서 거래해야 할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는 통역하는 시간외에는 가니드와 도시의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답사하는데 여가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는 거의 명인이 되어갔다. 그들은 그 도시에 사는 많은 빈곤자들을 발견하였고 여러 번 구제금을 주었다. 예수가 거리의 한 걸인에게 동전 한 닢을 주었을 뿐, 그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평강의 따뜻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떠나면서 한 그의 말의 의미를 가니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말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아버지의 영은, 아들 된 신분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거나 구할 수가 없다.” 예수가 의미했던 것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는 영적 인도함을 따를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폴리에서는 별다른 뚜렷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 예수와 젊은이는 도시 전체를 누비며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많은 미소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카푸아를 거쳐 로마로 갔으며, 카푸아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들은 짐을 실은 동물들을 이끌고 아피아 도로를 통하여 로마로 갔으며, 그 세 사람은 제국의 여왕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로마를 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the Mithraic religion and later on turned to the Christian faith.

130:8.4 (1440.4) At last they reached Naples and felt they were not far from their destination, Rome. Gonod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in Naples, and aside from the time Jesus was required as interpreter, he and Ganid spent their leisure visiting and exploring the city. Ganid was becoming adept at sighting those who appeared to be in need. They found much poverty in this city and distributed many alms. But Ganid never understood the meaning of Jesus' words when, after he had given a coin to a street beggar, he refused to pause and speak comfortingly to the man. Said Jesus: "Why waste words upon one who cannot perceive the meaning of what you say? The spirit of the Father cannot teach and save one who has no capacity for sonship." What Jesus meant was that the man was not of normal mind; that he lacked the ability to respond to spirit leading.

130:8.5 (1441.1) There was no outstanding experience in Naples; Jesus and the young man thoroughly canvassed the city and spread good cheer with many smiles upon hundreds of men, women, and children.

130:8.6 (1441.2) From here they went by way of Capua to Rome, making a stop of three days at Capua. By the Appian Way they journeyed on beside their pack animals toward Rome, all three being anxious to see this mistress of empire and the greatest city in all the world.

제 131 편 세계의 종교들

⇨ 130

유랜시아 책

13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1 편 세계의 종교들

섹션

소개

제 1 장. 견유주의

제 2 장. 유대교

제 3 장. 불교

제 4 장. 힌두교

제 5 장. 조로아스터교

제 6 장. 수두안교 (자이나교)

제 7 장. 신교

제 8 장. 도교

제 9 장. 유교

제 10 장. “우리의 종교”

PAPER 131

THE WORLD'S RELIGIONS

SECTIONS

Introduction

1. Cynicism

2. Judaism

3. Buddhism

4. Hinduism

5. Zoroastrianism

6. Suduanism (Jainism)

7. Shinto

8. Taoism

9. Confucianism

10. “Our Religion”

소개

예수와 고노드 그리고 가니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머무는 동안, 가니드는 자신의 많은 시간과 자기 아버지의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느님에 관한 그리고 그와 필사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들을 수집하였다. 가니드는 신(神)들에 관한 종교적 교리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60명 이상의 학식 있는 번역가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밝혀 두어야 할 점은, 일신교를 표방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보낸 선교사들의 설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 선교사들은 유일한 하느님—지고자—에 대한 교리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자신들의 살렘 본부로부터 파견되었다.

이것은 가니드의 서류 중에서 발췌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그 서류는 그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준비하였던 것이고, 그가 죽은 후 몇 백 년 동안이나 인도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항목으로 이 자료들을 모았다:

INTRODUCTION

^{131:0.1 (1442.1)} DURING the Alexandrian sojourn of Jesus, Gonod, and Ganid, the young man spent much of his time and no small sum of his father's money making a collection of the teachings of the world's religions about God and his relations with mortal man. Ganid employed more than threescore learned translators in the making of this abstract of the religious doctrines of the world concerning the Deities. And it should be made plain in this record that all these teachings portraying monotheism were largely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preachments of the missionaries of Machiventa Melchizedek, who went forth from their Salem headquarters to spread the doctrine of one God — the Most High — to the ends of the earth.

^{131:0.2 (1442.2)} There is presented herewith an abstract of Ganid's manuscript, which he prepared at Alexandria and Rome, and which was preserved in India for hundreds of years after his death. He collected this material under ten heads,

as follows:

제 1 장. 견유주의

멜기세덱 제자들의 남아있는 가르침들은, 유대인의 종교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견유학파의 교리 속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었다. 가니드가 수집한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느님은 최극이시며; 하늘과 땅의 지고자이다. 하느님은 완전해진 영원의 순환계이시며, 우주들의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는 하늘들과 땅의 유일한 조물주이시다. 그가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의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시며, 그는 연민이 가득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 높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의 하느님을 닮은 것이다. 지고자는 하늘과 땅의 빛이시며; 동, 서, 남, 북의 하느님이시다.

“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최극자의 빛나는 얼굴은 장엄과 영광 속에 거한다. 지고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이시다. 오직 한 분 하느님만이 존재하시고 그의 이름은 진리이시다. 하느님은 자아-실존이시며, 그에게는 분노와 적의가 전혀 없으시고, 그는 불멸하시며 무한하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전능하시며 관대하시다. 그는 여러 가지로 현시활동을 하시지만, 우리는 오직 하느님 그 자신만을 경배한다. 하느님은 모든 것—우리의 비밀들과 우리의 맹세들—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의 힘은 모든 것들에게 공평하시다.

“하느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는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창조물은 지고자의 힘 안에 존재한다. 그의 신성한 사랑은 그의 힘의 거룩함으로부터 솟아나오며, 애정은 그의 위대함의 힘에서 발생된다. 지고자는 몸과 혼의 연합을 명하셨으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자질로서 부여하셨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끝이 있지만, 창조자가 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우리는 사람의 체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반면에, 지혜를 얻는 것은 지고자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서이다.

“하느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빛나게 하시며, 곡식의 싹을 틔우시고, 우리에게 현재의 일생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하느님은 위대한 권한을 누리시며, 그의 이름은 탁월함이고, 그의 본성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너희가 병들었을 때 너희를 고치시는 이는 지고자시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함이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지고자와 같은 친구는 없다. 그의 자비는 모든 곳을 채우시고, 그의 선함은 모든 혼들을 감싸신다. 지고자는 변함이 없으시며; 필요할 때 항상 우리의 조력자이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고자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 하느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

1. CYNICISM

131:1.1 (1442.3) The residual teachings of the disciples of Melchizedek, excepting those which persisted in the Jewish religion, were best preserved in the doctrines of the Cynics. Ganid's selection embraced the following:

131:1.2 (1442.4) “God is supreme; he is the Most High of heaven and earth. God is the perfected circle of eternity, and he rules the universe of universes. He is the sole make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he decrees a thing, that thing is. Our God is one God, and he is compassionate and merciful. Everything that is high, holy, true, and beautiful is like our God. The Most High is the light of heaven and earth; he is the God of the east, the west, the north, and the south.

131:1.3 (1442.5) “Even if the earth should pass away, the resplendent face of the Supreme would abide in majesty and glory. The Most High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everything. There is but this one God, and his name is Truth. God is self-existent, and he is devoid of all anger and enmity; he is immortal and infinite. Our God is omnipotent and bounteous. While he has many manifestations, we worship only God himself. God knows all — our secrets and our proclamations; he also knows what each of us deserves. His might is equal to all things.

131:1.4 (1442.6) “God is a peace giver and a faithful protector of all who fear and trust him. He gives salvation to all who serve him. All creation exists in the power of the Most High. His divine love springs forth from the holiness of his power, and affection is born of the might of his greatness. The Most High has decreed the union of body and soul and has endowed man with his own spirit. What man does must come to an end, but what the Creator does goes on forever. We gain knowledge from the experience of man, but we derive wisdom from the contemplation of the Most High.

131:1.5 (1443.1) “God pours rain upon the earth, he causes the sun to shine upon the sprouting grain, and he gives us the abundant harvest of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and eternal salvation in the world to come. Our God enjoys great authority; his name is Excellent and his nature is unfathomable. When you are sick, it is the Most High who heals you. God is full of goodness toward all men; we have no friend like the Most High. His mercy fills all places and his goodness encompasses all souls. The Most High is changeless; and he is our helper in every time of need. Wherever you turn to pray, there is the face of the Most High and the open ear of our God. You may hide yourself from men, but

가 사람에게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시며; 그는 전재(全在)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장소에 충만하시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의 가슴속에 살아 계신다. 창조물은 창조자 안에 있고, 창조자는 자기 창조물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고자를 찾으려면, 우리 가슴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너희가 소중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면, 너희는 그를 너희 혼 속에서 발견한다.

“하느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그의 형제들이다. 육신적인 자기 형제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 대가로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진실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가슴을 가진 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실수를 뒤집어엎고 악을 극복하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악에 대하여 선(善)을 행하라. 주님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며;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사랑하자. 하느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형제들이다. 하느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는 것만큼, 너희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지고자를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온 세상과 우주들은 지고자를 경배한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기도으로써 감사—경배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드러라.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경배는 악을 물리치고 죄를 막아준다. 항상 그 지고자의 이름을 칭송하자. 지고자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우주로부터 가릴 수 있다. 너희가 깨끗한 가슴을 지니고 하느님 앞에 설 때, 너희는 모든 창조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지고자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시며,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실제로 사랑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로 인도한다. 하느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자기 이름을 섬기도록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지고자에 대한 신앙이 너희의 가슴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너희 일생의 모든 나날을 통하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의 번영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악을 꾸미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으로 하여금 죄에서 멀리 하게 하고 구원의 하느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방황하는 필사자들의 지친 혼은 지고자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찾으며; 현명한 자는 신성한 포옹을 그리워한다; 땅의 자녀들은 우주 아버지의 팔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고대한다. 고귀한 사람은 필사자들의 혼이 죄극자의 영광 섞여 하나가 되는

not from God. God is not a great distance from us; he is omnipresent. God fills all places and lives in the heart of the man who fears his holy name. Creation is in the Creator and the Creator in his creation. We search for the Most High and then find him in our hearts. You go in quest of a dear friend, and then you discover him within your soul.

131:1.6 (1443.2) “The man who knows God looks upon all men as equal; they are his brethren. Those who are selfish, those who ignore their brothers in the flesh, have only weariness as their reward. Those who love their fellows and who have pure hearts shall see God. God never forgets sincerity. He will guide the honest of heart into the truth, for God is truth.

131:1.7 (1443.3) “In your lives overthrow error and overcome evil by the love of the living truth. In all your relations with men do good for evil. The Lord God is merciful and loving; he is forgiving. Let us love God, for he first loved us. By God’s love and through his mercy we shall be saved. Poor men and rich men are brothers. God is their Father. The evil you would not have done you, do not to others.

131:1.8 (1443.4) “At all times call upon his name, and as you believe in his name, so shall your prayer be heard. What a great honor it is to worship the Most High! All the worlds and the universes worship the Most High. And with all your prayers give thanks — ascend to worship. Prayerful worship shuns evil and forbids sin. At all times let us praise the name of the Most High. The man who takes shelter in the Most High conceals his defects from the universe. When you stand before God with a clean heart, you become fearless of all creation. The Most High is like a loving father and mother; he really loves us, his children on earth. Our God will forgive us and guide our footsteps into the ways of salvation. He will take us by the hand and lead us to himself. God saves those who trust him; he does not compel man to serve his name.

131:1.9 (1443.5) “If the faith of the Most High has entered your heart, then shall you abide free from fear throughout all the days of your life. Fret not yourself because of the prosperity of the ungodly; fear not those who plot evil; let the soul turn away from sin and put your whole trust in the God of salvation. The weary soul of the wandering mortal finds eternal rest in the arms of the Most High; the wise man hungers for the divine embrace; the earth child longs for the security of the arms of the Universal Father. The noble man seeks for that

높은 상태를 추구한다.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은 것으로부터 결실을 받아들이자 못한 것은 다음 세상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

high estate wherein the soul of the mortal blends with the spirit of the Supreme. God is just: What fruit we receive not from our plantings in this world we shall receive in the next.”

제 2 장. 유대교

팔레스타인의 켈-사람은 멜기세덱의 가르침 대부분을 건져내었으며, 유대인에 의해 보존되고 수정된 이 기록들로부터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은 보기에 매우 좋았다. 주님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슴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바다를 덮은 물처럼, 땅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늘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낸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낸다.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나 언어가 없다. 주님의 일은 위대하시며, 그는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아시며;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두 부르신다.

“주님의 힘은 크시며 그의 납득은 무한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은 것같이, 나의 방법은 너희의 방법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느님은 자기 안에 빛이 거하므로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신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실이 풍성하시다. 주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온유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바라보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며, 환난 속에 함께 거하시는 도움이시다.

“주님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영속으로부터 영속까지 임하며, 그의 의는 우리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연민의 정이 풍성하시다. 주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덮으시며; 그들 가슴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신성한 현존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존귀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뉘우치고 가슴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아무도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못하니, 그가 곧 하늘과 땅을 채우셨기 때문이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기쁨을 향유하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언제까지나 그의 자비가 지속되리니, 하

2. JUDAISM

131:2.1 (1444.1) The Kenites of Palestine salvaged much of the teaching of Melchizedek, and from these records, as preserved and modified by the Jews, Jesus and Ganid made the following selection:

131:2.2 (1444.2)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all things therein. And, behold, all he created was very good. The Lord, he is God; there is none beside him in heaven above or upon the earth beneath. Therefore shall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s his handiwork. Day after day utters speech; night after night shows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The Lord's work is great, and in wisdom has he made all things; the greatness of the Lord is unsearchable. He knows the number of the stars; he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131:2.3 (1444.3) “The power of the Lord is great and his understanding infinite. Says the Lor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higher than your thoughts.’ God reveals the deep and secret things because the light dwells with him. The Lord is merciful and gracious; he i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The Lord is good and upright; the meek will he guide in judgment.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God.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131:2.4 (1444.4) “The mercy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upon those who fear him and his righteousness even to our children's children. The Lord is gracious and full of compassion. The Lord is good to all, and his tender mercies are over all his creation;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Whither shall I go from God's spirit? whither shall I flee from the divine presence? Thus says the High and Lofty One who inhabits eternity, whose name is Holy: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 also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heart and a humble spirit!’ None can hide himself from our God, for he fills heaven and earth. Let the heavens be glad and let the earth rejoice. Let all nations say: The Lord reigns! Give thanks to G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느님께 감사를 드러라.

“하늘들은 하느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민족이고 그의 풀밭에 있는 양이다. 그의 자비는 영속하며 그의 진실은 모든 세대마다 계속되신다. 우리 하느님은 모든 나라들의 총독이시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워라! 그의 선행과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의 놀라운 선물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하느님은 사람을 신성한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셨다. 주님은 의의 길을 아시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됨이다; 최극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능자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자부심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몰락의 앞잡이임을 잊지 말라.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강하다. 주님 하느님, 거룩한 이가 말씀한다: ‘너희가 돌이켜 영적 평안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고요함과 확신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달음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너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휴식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낙담치 말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 그렇다, 나의 정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시다.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모두 보존한다. 그의 의는 산과 같고, 그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아침에는 자애로움을 보내어 보이시고 밤마다 신성한 충실하심을 보이시니; 주님께 감사하고 지고자를 찬송하라. 하느님의 왕국은 영속하는 왕국이니, 그의 영토는 모든 세대에 두루 이어진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정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害)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선행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언제나 지나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야훼는 내 구원의 하느님이시므로; 나는 그 신성한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할 것이며, 그가 나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이행하시며; 의로운 자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가 편치 않은 것

131:2.5 (1444.5) “The heavens declare God’s righteousness, and all the people have seen his glory. It is God who has made us, and not we ourselve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Our God is governor among the nations. Let th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O that men would praise the Lord for his goodness and for his wonderful gifts to the children of men!

131:2.6 (1444.6) “God has made man a little less than divine and has crowned him with love and mercy.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 knowledge of the Supreme is understanding. Says the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perfect.’ Forget not that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He who rules his own spirit is mightier than he who takes a city. Says the Lord God, the Holy One: ‘In returning to your spiritual rest shall you be saved; in quietness and confidence shall be your strength.’ They who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be faint. The Lord shall give you rest from your fear. Says the Lord: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yes, I will uphold you with the right hand of my righteousness.’

131:2.7 (1445.1) “God is our Father; the Lord is our redeemer. God has created the universal hosts, and he preserves them all. His righteousness is like the mountains and his judgment like the great deep. He causes us to drink of the river of his pleasures, and in his light we shall see light.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s to the Most High; to show forth loving-kindness in the morning and the divine faithfulness every night. God’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his dominion endures throughout all generation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Ye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God is with me.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131:2.8 (1445.2) “Yahweh is the God of my salvation; therefore in the divine name will I put my trust. I will trust in the Lord with all my heart; I will lean not upon my own understanding. In all my ways I will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my paths. The Lord is faithful; he keeps his word with those who serve him;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If you

은 네 문 앞에 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악을 밟고 죄를 뿌린 자들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네가 네 가슴에 사악한 불의를 품으면, 주님께서 네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약 네가 하느님께 죄를 범하면 너는 네 자신의 혼에게도 그릇된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이든 악이든 판단하실 것이다. 사람은 그 가슴에 품은 생각에 따라, 그 됨됨이가 정해진다.

“주님은 자기에게 성심으로 진실하게 탄원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울음이 밤 동안에 계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즐거운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하느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했다; ‘나 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으니, 나는 공의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는다면, 나를 만나리라.’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으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악한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며,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 지라도 흰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으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은 것은 바로 너희가 지는 죄들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 안색을 치유하는 분이시며, 내 혼의 기쁨이시다. 영원한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며;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 아래에는 영속하는 팔이 있다. 주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가까우시며;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진 모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그를 신뢰하면—그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의인의 길은 밝은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언제까지나 비칠 것이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자신의 모반하는 생각들을 버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들을 널리 용서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소유한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온 가슴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하느님들을 두지

do not well, it is because sin lies at the door; men reap the evil they plough and the sin they sow. Fret not yourself because of evildoers. If you regard iniquity in your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you; if you sin against God, you also wrong your own soul. God will bring every man's work 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evil. As a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131:2.9 (1445.3) “The Lord is near all who call upon him in sincerity and in truth.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A merry heart does good like a medicine. No good thing will God withhold from those who walk uprightly.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Thus says the Lor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who formed the earth: ‘There is no God beside me, a just God and a savior. Look to me and b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If you seek me, you shall find me if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The meek shall inherit the earth and shall delight themselves in the abundance of peace. Whoever sows iniquity shall reap calamity; they who sow the wind shall reap the whirlwind.

131:2.10 (1445.4)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b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 as wool.’ But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it is your own sins which have withheld the good things from you. God is the health of my countenance and the joy of my soul. The eternal God is my strength; he is our dwelling place, and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The Lord is near to those who are brokenhearted; he saves all who have a childlike spirit.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man, but the Lord delivers him out of them all. Commit your way to the Lord — trust him — and he will bring it to pass.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131:2.11 (1445.5)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bear a grudge against no man. Whatsoever you hate do to no man. Love your brother, for the Lord has said: ‘I will love my children freely.’ The path of the just is as a shining light which shines more and more until the perfect day. They who are wise shall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ey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as the stars forever and ever. Let the wicked forsake his evil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rebellious thoughts. Says the Lord: ‘Le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have mercy on them; I will abundantly pardon.’

131:2.12 (1446.1) “Says Go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Great peace have they who love my law. My commandments are: You shall love me with all your heart; you shall have no gods before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무덤에서 살려낼 것이다; 너를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의를 베풀 것이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나의 창조체들에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영속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와 같이 되어 파라다이스에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살자고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제 3 장. 불교

가니드는, 불교가 하나님 없이도, 개인적이거나 우주적인 신(神) 없이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교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를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그는, 인도에서 부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초기 신조들의 기록을 찾아내었다. 예수와 가니드는 불교 문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하였다:

"순수한 가슴으로부터 나온 기쁨은 무한자에게 이를 것이다; 나의 존재 전체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으로 평화로울 것이다. 나의 혼은 만족로 가득 차고, 나의 가슴은 평화스런 신뢰의 지복으로 넘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안정 속에 거하며, 나의 적들은 나의 가슴을 흔들 수 없다. 나는 내 확신의 열매로 만족한다. 나는 불멸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발견하였다. 나는 오랜 여정에서도 나를 붙들어 줄 신앙을 위해 탄원한다; 내세로부터 온 신앙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내 형제들이 불멸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번영하리라는 것과, 심지어는 겸양과 정직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과 인내심을 주는 그 신앙으로 자라갈 것임을 나는 안다. 슬픔을 내어버리고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자. 신뢰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순수한 사랑다운을 간직하자. 공의와 자비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자. 신앙은 사람의 진정한 재산이다; 덕행과 영광의 자질이다.

"불의는 비천한 것이며 죄는 비열한 것이다. 악은, 생각 속에 있든지 밖으로 드러나든지, 타락시키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악의 길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 물질적 사물의 본체에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순수한 생각과 고결한 삶에는 행복과 평화가 따라온다. 악(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생각의 소산이다.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보는 것은 악이다; 죄가 있는 곳에서 죄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악이다. 악은 거

me; you shall not take my name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you shall not kill;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you shall not covet.'

131:2.13 (1446.1) "And to all who love the Lord supremely and their neighbors like themselves, the God of heaven says: 'I will ransom you from the grave; I will redeem you from death. I will be merciful to your children, as well as just. Have I not said of my creatures on earth, you are the sons of the living God? And have I not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Have I not called you to become like me and to dwell forever with me in Paradise?"

3. BUDDHISM

131:3.1 (1446.3) Ganid was shocked to discover how near Buddhism came to being a great and beautiful religion without God, without a personal and universal Deity. However, he did find some record of certain earlier beliefs which reflected something of the influence of the teachings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who continued their work in India even to the times of Buddha. Jesus and Ganid collected the following statements from the Buddhist literature:

131:3.2 (1446.4) "Out of a pure heart shall gladness spring forth to the Infinite; all my being shall be at peace with this supermortal rejoicing. My soul is filled with content, and my heart overflows with the bliss of peaceful trust. I have no fear; I am free from anxiety. I dwell in security, and my enemies cannot alarm me. I am satisfied with the fruits of my confidence. I have found the approach to the Immortal easy of access. I pray for faith to sustain me on the long journey; I know that faith from beyond will not fail me. I know my brethren will prosper if they become imbued with the faith of the Immortal, even the faith that creates modesty, uprightness, wisdom, courage, knowledge, and perseverance. Let us forsake sorrow and disown fear. By faith let us lay hold upon true righteousness and genuine manliness. Let us learn to meditate on justice and mercy. Faith is man's true wealth; it is the endowment of virtue and glory.

131:3.3 (1446.5) "Unrighteousness is contemptible; sin is despicable. Evil is degrading, whether held in thought or wrought out in deeds. Pain and sorrow follow in the path of evil as the dust follows the wind. Happiness and peace of mind follow pure thinking and virtuous living as the shadow follows the substance of material things. Evil is the fruit of wrongly directed thinking. It is evil to see sin where there is no sin; to see no sin where there is sin.

짓된 교리의 길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악을 피하는 자는, 진리를 만남으로써 기쁨을 얻을 것이다. 죄를 혐오함으로써 너희의 불행을 마감하라. 너희가 고귀한 이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된다. 악에 대하여 어떤 핑계도 하지 말라;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과거의 죄를 고치려는 노력을 통하여, 너희는 미래에 다가올 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절제는 참회에서 탄생된다. 고귀한 이에 게 모든 결함을 남기지 말고 고백하라.

“즐거움과 기쁨은 선한 행위의 보상이며 불멸자의 영광에 이른다.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너희의 종교에 대한 신앙이 너희 가슴을 해방시키면, 마음이 산과 같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면, 혼의 평화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게 흐를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탐심과 시기심과 증오심과 재물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언제까지나 자유롭다. 신앙이 더 좋은 일생에 대한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만약 너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확신한다면, 너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 지 확인하라. 내면에서 솟아 나오는 가슴의 확신을 키워라, 그리하면 영원한 구원의 황홀함을 즐기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인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쓸데없고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한에는, 불멸의 지혜의 깨우침을 얻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사려 깊고 신중하고 반성하며 열렬하고 진지한 사람은—그가 아직 땅에 살고 있을 동안이라도—, 신성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평화와 해방의 최극의 깨우침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행동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아들인다. 악은 슬픔으로 끝나고, 죄는 고통으로 끝난다. 기쁨과 행복은 선한 생활의 결과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의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즐거운 시절을 지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이 악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 가슴속에: ‘그릇된 행동의 벌은 나에게서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행한 것은, 지혜로운 심판으로 인하여, 모두 너희에게 행해질 것이다. 너희의 주위 사람들에게 행한 불공정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조체는 자기 행위로 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가슴에서 말하기를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함은 오직 그 혼이 질책을 갈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를 찾을 때에만 발견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란, 자기의 적들에게도 친절하게 행하고, 난리 중에도 조용하게 행하며, 탐욕자들 속에서 너그러운 고귀한 혼을 말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들판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 이기심은 결국 슬픔을 부르며; 쉴 새 없는 걱정은 죽음을 부른다. 유순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복종시킨 자는 가장 위대한 전사이다. 매사에 자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덕을 쌓으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자만이 우월한 개인이다. 분

Evil is the path of false doctrines. Those who avoid evil by seeing things as they are gain joy by thus embracing the truth. Make an end of your misery by loathing sin. When you look up to the Noble One, turn away from sin with a whole heart. Make no apology for evil; make no excuse for sin. By your efforts to make amends for past sins you acquire strength to resist future tendencies thereto. Restraint is born of repentance. Leave no fault unconfessed to the Noble One.

131:3.4 (1447.1) “Cheerfulness and gladness are the rewards of deeds well done and to the glory of the Immortal. No man can rob you of the liberty of your own mind. When the faith of your religion has emancipated your heart, when the mind, like a mountain, is settled and immovable, then shall the peace of the soul flow tranquilly like a river of waters. Those who are sure of salvation are forever free from lust, envy, hatred, and the delusions of wealth. While faith is the energy of the better life, nevertheless, must you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perseverance. If you would be certain of your final salvation, then make sure that you sincerely seek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Cultivate the assurance of the heart which springs from within and thus come to enjoy the ecstasy of eternal salvation.

131:3.5 (1447.2) “No religionist may hope to attain the enlightenment of immortal wisdom who persists in being slothful, indolent, feeble, idle, shameless, and selfish. But whoso is thoughtful, prudent, reflective, fervent, and earnest — even while he yet lives on earth — may attain the supreme enlightenment of the peace and liberty of divine wisdom. Remember, every act shall receive its reward. Evil results in sorrow and sin ends in pain. Joy and happiness are the outcome of a good life. Even the evildoer enjoys a season of grace before the time of the full ripening of his evil deeds, but inevitably there must come the full harvest of evil-doing. Let no man think lightly of sin, saying in his heart: ‘The penalty of wrongdoing shall not come near me.’ What you do shall be done to you, in the judgment of wisdom. Injustice done to your fellows shall come back upon you. The creature cannot escape the destiny of his deeds.

131:3.6 (1447.3)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Evil shall not overtake me’; but safety is found only when the soul craves reproof and the mind seeks wisdom. The wise man is a noble soul who is friendly in the midst of his enemies, tranquil among the turbulent, and generous among the grasping. Love of self is like weeds in a goodly field. Selfishness leads to grief; perpetual care kills. The tamed mind yields happiness. He is the greatest of warriors who overcomes and subdues himself. Restraint in all things is good. He alone is a superior person who esteems virtue and is observant of his duty. Let not anger and hate

노나 미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가혹하게 말하지 말라. 가득 찬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지혜롭게 주어진 것은 잘 지켜진다.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악에게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의로운 혼은 지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것보다 더욱 소중한 존재이다. 불멸은 성실함의 목표이다; 죽음은 경솔한 삶의 종말이다. 진지한 자는 죽지 않으며, 경솔한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음 없는 상태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삶을 억지로 산 사람은 죽음 후에도 행복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사심-없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들은 무한한 해방의 축복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고, 고귀한 관용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 올바르게 생각하며 고귀하게 말하고 사심-없이 행동하는 모든 필사자는 이 짧은 일생 동안 이곳에서 덕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몸이 괴멸되고 난 뒤에도 천상의 복락을 계속 누릴 것이다.”

제 4 장. 힌두교

멜기세덱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일신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일신교를 숭상하는 이러한 교리의 대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개념들과 함께, 힌두교의 후대 교훈들 속에 체현되기 시작했다.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하였다:

“그는 위대한 하느님이며, 모든 방면에서 최극이시다. 그는 만물을 포용(包容)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우주들의 우주의 통제자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는 홀로 이시며 자기 자신으로 그 이시다; 그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 유일한 하느님이 우리의 조물주이시며 혼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신다. 최극이신 분은 너무나 찬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빛들 중의 빛이시다. 모든 가슴과 모든 세계가 이 신성한 빛에 의해 비추어진다. 하느님은 우리의 보호자—자신의 창조체들의 편에 서 계시다—이시며, 그를 알게 되는 자는 불멸하게 된다. 하느님은 에너지의 큰 근원이시며; 위대한 혼이시다. 그는 우주적 주권을 만유 위에 펼친다. 유일한 이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경배 받을 만하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최극이시며 더없이 높은 처소에 거한다. 진정한 이 개인은 영원하고 신성하다; 하늘에서 최초의 주님이시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를 환호하였고,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오셨다.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오, 최극이신 분이시여, 존재들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의 주님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여, 당신이 내재적으로 거하시는 그 힘을 당신의 창조체인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느님은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고; 밝으시며 순수하시며 자아-실존적이시다. 그의 영원한 지식은 신성하게 현명하시다. 영원한 이에게는 악이 침투하지 못한다. 우주가 하느님으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적절하게 다

master you. Speak harshly of no one. Contentment is the greatest wealth. What is given wisely is well saved. Do not to others those things you would not wish done to you. Pay good for evil; overcome evil with the good.

131:3.7 (1447.4) “A righteous soul is more to be desired than the sovereignty of all the earth. Immortality is the goal of sincerity; death, the end of thoughtless living. Those who are earnest die not; the thoughtless are dead already. Blessed are they who have insight into the deathless state. Those who torture the living will hardly find happiness after death. The unselfish go to heaven, where they rejoice in the bliss of infinite liberality and continue to increase in noble generosity. Every mortal who thinks righteously, speaks nobly, and acts unselfishly shall not only enjoy virtue here during this brief life but shall also,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body, continue to enjoy the delights of heaven.”

4. HINDUISM

131:4.1 (1447.5) The missionaries of Melchizedek carried the teachings of the one God with them wherever they journeyed. Much of this monotheistic doctrine, together with other and previous concepts, became embodied in the subsequent teachings of Hinduism. Jesus and Ganid made the following excerpts:

131:4.2 (1448.1) “He is the great God, in every way supreme. He is the Lord who encompasses all things. He is the creator and control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God is one God; he is alone and by himself; he is the only one. And this one God is our Maker and the last destiny of the soul. The Supreme One is brilliant beyond description; he is the Light of Lights. Every heart and every world is illuminated by this divine light. God is our protector — he stands by the side of his creatures — and those who learn to know him become immortal. God is the great source of energy; he is the Great Soul. He exercises universal lordship over all. This one God is loving, glorious, and adorable. Our God is supreme in power and abides in the supreme abode. This true Person is eternal and divine; he is the primal Lord of heaven. All the prophets have hailed him, and he has revealed himself to us. We worship him. O Supreme Person, source of beings, Lord of creation, and ruler of the universe, reveal to us, your creatures, the power whereby you abide immanent! God has made the sun and the stars; he is bright, pure, and self-existent. His eternal knowledge is divinely wise. The Eternal is unpenetrated by evil. Inasmuch as the universe sprang from God, he does rule it appropriately. He is the cause of creation, and hence are all things

스리신다. 그는 창조의 원인이시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형성되었다.

“하느님은 필요할 때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며; 불멸하시는 분은 모든 인류를 돌보신다. 하느님의 구원은 강하며, 그의 친절하심은 은총이 넘친다. 그는 사랑이 많으신 보호자이시며 축복이 넘치는 옹호자이시다. 주님께서 말하되: ‘나는 그들 자신의 혼속에 지혜의 등불로서 머무른다. 나는 빛나는 광채이며 선한 사람들의 선이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창조체들은 창조자의 현존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은 모든 필사자의 눈이 끊임없이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세시며; 우리는 이 신성한 존재를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행자로서 경배한다. 그는 모든 것에 세력을 미치시며 관대하시며 전제(全在)하시며 무한히 친절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최극의 통제자이시며, 그의 태고의 영이 필사자의 혼 안에 내주하고 있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 사람의 가슴속에 거한다. 경배할 만하고 신성한 생명을 주는 이를 깊이 명상 한다; 그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다스리게 하라. 이 비실체의 세계로부터 실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죽음에서 불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슴으로 모든 미움을 일소하고, 영원자를 경배하자. 우리의 하느님은 기도의 주님이시며; 자기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변치 않으시는 분에게 복종하게 하라. 기도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에서 기뻐하자. 너희의 내밀한 친구에게 기도하고, 너희 혼의 지지자를 경배하라. 영원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나를 경배하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얻는 지혜를 주겠노라, 나를 경배함은 모든 창조체에게 공통된 덕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며 연약한 자의 힘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강한 친구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의 이름을 칭송한다. 그가 사람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조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확실한 영도자이시고 실패를 모르는 안내자이시다. 그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부모이시며, 무한한 에너지와 무제한적인 지혜를 소유하셨다. 그의 광채는 장엄하며, 그의 아름다움은 신성하다. 그는 우주의 최극의 피난처이시며 영속하는 법의 변함없는 수호자이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생명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안위자이시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꺾박받는 자들의 조력자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인간 무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형제이시며 친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느님을 우리의 내면적 존재 속에서 알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우리 가슴의 열망으로써 신앙을 얻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 감각의 억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며,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극자 안에서 평화를 체험하였다. 신뢰로 가득한 이는, 그의 내면의 자아가 하느님에게로 향할 때 진정으로 경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을 외투로 삼으시고; 그는 또한 다른 여섯 개의 넓게 펼쳐진 우

established in him.

131:4.3 (1448.2) “God is the sure refuge of every good man when in need; the Immortal One cares for all mankind. God’s salvation is strong and his kindness is gracious. He is a loving protector, a blessed defender. Says the Lord: ‘I dwell within their own souls as a lamp of wisdom. I am the splendor of the splendid and the goodness of the good. Where two or three gather together, there am I also.’ The creature cannot escape the presence of the Creator. The Lord even counts the ceaseless winking of every mortal’s eyes; and we worship this divine Being as our inseparable companion. He is all-prevailing, bountiful, omnipresent, and infinitely kind. The Lord is our ruler, shelter, and supreme controller, and his primeval spirit dwells within the mortal soul. The Eternal Witness to vice and virtue dwells within man’s heart. Let us long meditate on the adorable and divine Vivifier; let his spirit fully direct our thoughts. From this unreal world lead us to the real! From darkness lead us to the light! From death guide us to immortality!

131:4.4 (1448.3) “With our hearts purged of all hate, let us worship the Eternal. Our God is the Lord of prayer; he hears the cry of his children. Let all men submit their wills to him, the Resolute. Let us delight in the liberality of the Lord of prayer. Make prayer your inmost friend and worship your soul’s support. ‘If you will but worship me in love,’ says the Eternal, ‘I will give you the wisdom to attain me, for my worship is the virtue common to all creatures.’ God is the illuminator of the gloomy and the power of those who are faint. Since God is our strong friend, we have no more fear. We praise the name of the never-conquered Conqueror. We worship him because he is man’s faithful and eternal helper. God is our sure leader and unfailing guide. He is the great parent of heaven and earth, possessed of unlimited energy and infinite wisdom. His splendor is sublime and his beauty divine. He is the supreme refuge of the universe and the changeless guardian of everlasting law. Our God is the Lord of life and the Comforter of all men; he is the lover of mankind and the helper of those who are distressed. He is our life giver and the Good Shepherd of the human flocks. God is our father, brother, and friend. And we long to know this God in our inner being.

131:4.5 (1448.4) “We have learned to win faith by the yearning of our hearts. We have attained wisdom by the restraint of our senses, and by wisdom we have experienced peace in the Supreme. He who is full of faith worships truly when his inner self is intent upon God. Our God wears the heavens as a mantle; he also inhabits the other six wide-

주들에 거한다. 그는 모든 것 위와 모든 것 속에서 최극이시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 행한 모든 과오로 인해 주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릇됨으로부터 친구들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모든 악을 싫어한다; 그러니, 오, 주님, 악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는, 위로자시며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우리를 사랑하시는—하느님께 기도한다.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의 영이 단순한 창조체의 혼속으로 들어가신다. 그 사람은 유일한 하느님을 경배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완전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최극 주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누가 최극자의 축복이 넘치는 안전함을 아는지를 개의치 않으시는데, 최극자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섭리의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느님은 진리이다. 그리고 그의 창조체들이 자기를 납득하는 것—진리를 충분히 아는 것—이 하느님의 바램이시다. 진리는 영원하다; 우주를 지탱한다. 우리의 최극의 열망은 최극자와 연합하는 것이다. 위대한 통제자는 모든 것—모든 진화가 그로부터 나왔다—을 생겨나게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의무는 다음과 같다: 아무도 자신에게 싫증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시키지 못하게 하라; 악을 품지 말고, 너희를 때리는 자를 때리지 말며, 자비로 분노를 정복하고, 은혜로 증오를 극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하느님이 친절한 친구이며 우리의 모든 세속적 잘못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땅은 우리의 어머니요, 우주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다. 하느님이 없이는 혼은 갇힌 자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혼을 해방한다. 하느님을 명상함으로써, 그와 연합함으로써, 악에 대한 모든 망상으로부터 해방됨이 오고, 모든 물질적 사슬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맞이한다. 사람이 공간을 한 조각 가죽처럼 둘둘 말아 버릴 때, 악이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느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오,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삼중의 지옥의 파멸의 원인—욕욕, 분노, 탐욕—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 혼이여, 불멸함의 영 투쟁을 위하여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해라! 필사 생명의 끝이 왔을 때, 더욱 어울리고 아름다운 형태를 얻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죽음도 없는 그곳 최극자와 불멸자의 영역에서 깨어나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이 육신을 버려라. 하느님을 아는 것은 죽음의 끈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하느님을 아는 혼은, 우주의 위에서 크림이 떠오르듯, 우주에서 떠오른다. 우리는 자신의 창조체의 가슴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계시는 위대한 혼, 모든 일을 하시는 분, 하느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의 가슴속 보좌에 앉아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불멸—될 운명이다. 악은 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되지만, 미덕은 혼을 따라 하늘로 간다.

“우주에는 진실도 없고 어떤 통치자도 없으며;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고안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오직 사악한 자일뿐이다. 그러한 혼은 그들의 지성이 편협 됨으로 인하여 미혹되는 것이다. 그들은 탐욕을 즐기는데 자신을 던지고

spreading universes. He is supreme over all and in all. We crave forgiveness from the Lord for all of our trespasses against our fellows; and we would release our friend from the wrong he has done us. Our spirit loathes all evil; therefore, O Lord, free us from all taint of sin. We pray to God as a comforter, protector, and savior — one who loves us.

131:4.6 (1449.1) “The spirit of the Universe Keeper enters the soul of the simple creature. That man is wise who worships the One God. Those who strive for perfection must indeed know the Lord Supreme. He never fears who knows the blissful security of the Supreme, for the Supreme says to those who serve him, ‘Fear not, for I am with you.’ The God of providence is our Father. God is truth. And it is the desire of God that his creatures should understand him — come fully to know the truth. Truth is eternal; it sustains the universe. Our supreme desire shall be union with the Supreme. The Great Controller is the generator of all things — all evolves from him. And this is the sum of duty: Let no man do to another what would be repugnant to himself; cherish no malice, smite not him who smites you, conquer anger with mercy, and vanquish hate by benevolence. And all this we should do because God is a kind friend and a gracious father who remits all our earthly offenses.

131:4.7 (1449.2) “God is our Father, the earth our mother, and the universe our birthplace. Without God the soul is a prisoner; to know God releases the soul. By meditation on God, by union with him, there comes deliverance from the illusions of evil and ultimate salvation from all material fetters. When man shall roll up space as a piece of leather, then will come the end of evil because man has found God. O God, save us from the threefold ruin of hell — lust, wrath, and avarice! O soul, gird yourself for the spirit struggle of immortality! When the end of mortal life comes, hesitate not to forsake this body for a more fit and beautiful form and to awake in the realms of the Supreme and Immortal, where there is no fear, sorrow, hunger, thirst, or death. To know God is to cut the cords of death. The God-knowing soul rises in the universe like the cream appears on top of the milk. We worship God, the all-worker, the Great Soul, who is ever seated in the heart of his creatures. And they who know that God is enthroned in the human heart are destined to become like him — immortal. Evil must be left behind in this world, but virtue follows the soul to heaven.

131:4.8 (1449.3) “It is only the wicked who say: The universe has neither truth nor a ruler; it was only designed for our lusts. Such souls are deluded by the smallness of their intellects. They thus abandon themselves to the enjoyment of their

자신의 혼에서의 덕목의 즐거움과 정의의 기쁨을 빼앗는다. 죄에서 구원받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있을 수 있는가? 최극자를 만난 사람은 불멸한다. 육신으로서의 사람의 친구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며; 사람이 파라다이스의 화창하고 빛나는 들판을 향해 여행할 때, 그의 선행만이 그 사람 곁을 따라간다.”

제 5 장.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는 그 자신이 초기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후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었으며,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그가 페르시아에 세운 종교의 중심 교훈이 되었다. 유대교를 제외하고,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보다 이들 살렘의 가르침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교는 없었다. 이 종교의 문헌들에서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발췌하였다:

“모든 것이 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께—전지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우신—속해 있다. 우리의 이 하느님은 모든 광채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모든 선한 목적의 하느님이시며, 우주의 공의를 수호하시는 분이시다. 현명한 일생을 사는 길은 진리의 영광의 일치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사악한 자의 악행과 의로운 자의 선행을 둘 모두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하느님은 번쩍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한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에는 치유함이 있다. 주님은 만능이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그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둘 모두에게 펼친다. 하느님은 세상을 세우셨고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정하셨다. 전지한 하느님은,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경건한 혼에게 불멸을 약속하고 계시다. 너희가 최극으로 열망하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자에게 있어서 태양의 빛은 지혜와 같은 것이다.

“지혜로우신 이의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하느님을 칭송하라. 그가 종교를 통해 계시한 길을 걸음으로써 빛의 하느님을 경배하라. 빛들의 주님이신, 최극자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물과 식물과 동물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관대한 불멸의 존재, 영원한 빛을 자질로서 부여받은 이를 경배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멀리 계시며, 동시에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혼 안에 거한다. 우리의 하느님은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파라다이스의 영이시지만, 모든 창조체의 가장 친근한 것보다 사람에게 더욱 친근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시며, 모든 일들 중에서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칭송 받을 만한 분이시며 의로운 친구이다; 우리의 지혜이시고 생명이시며 혼과 육체의 활력이 되는 분이시다. 지혜로우신 창조자는 우리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그럼으로써 신성

lusts and deprive their souls of the joys of virtue and the pleasures of righteousness. What can be greater than to experience salvation from sin? The man who has seen the Supreme is immortal. Man's friends of the flesh cannot survive death; virtue alone walks by man's side as he journeys ever onward toward the gladsome and sunlit fields of Paradise.”

5. ZOROASTRIANISM

131:5.1 (1449.4) Zoroaster was himself directly in contact with the descendants of the earlier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their doctrine of the one God became a central teaching in the religion which he founded in Persia. Aside from Judaism, no religion of that day contained more of these Salem teachings. From the records of this religion Ganid made the following excerpts:

131:5.2 (1450.1) “All things come from, and belong to, the One God — all-wise, good, righteous, holy, resplendent, and glorious. This, our God, is the source of all luminosity. He is the Creator, the God of all good purposes, and the protector of the justice of the universe. The wise course in life is to act in consonance with the spirit of truth. God is all-seeing, and he beholds both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and the good works of the righteous; our God observes all things with a flashing eye. His touch is the touch of healing. The Lord is an all-powerful benefactor. God stretches out his beneficent hand to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God established the world and ordained the rewards for good and for evil. The all-wise God has promised immortality to the pious souls who think purely and act righteously. As you supremely desire, so shall you be. The light of the sun is as wisdom to those who discern God in the universe.

131:5.3 (1449.6) “Praise God by seeking the pleasure of the Wise One. Worship the God of light by joyfully walking in the paths ordained by his revealed religion. There is but one Supreme God, the Lord of Lights. We worship him who made the waters, plants, animals, the earth, and the heavens. Our God is Lord, most beneficent. We worship the most beautiful, the bountiful Immortal, endowed with eternal light. God is farthest from us and at the same time nearest to us in that he dwells within our souls. Our God is the divine and holiest Spirit of Paradise, and yet he is more friendly to man than the most friendly of all creatures. God is most helpful to us in this greatest of all businesses, the knowing of himself. God is our most adorable and righteous friend; he is our wisdom, life, and vigor of soul and body. Through our good thinking the wise Creator will enable us to do his will, thereby attaining the realization of all that is divinely perfect.

하게 완벽한 모든 것의 실현을 달성 한다.

“주님, 한편으로는 내세의 영의 일생을 준비 하면서, 육체에서의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가겠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는 정의로움과 함께 연합하는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올바른 것임을 알고 있나이다. 하느님은 우리 지혜의 본성이시며 최상의 생각이며 정의로운 행동이십니다. 하느님이시여, 당신 안에서 신성한 영과 불멸성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지혜자의 이 종교는 모든 악한 생각과 죄 많은 행위로부터 믿는 자를 깨끗케 한다. 만일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죄를 범한 것이 있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앞에 회개하면서 허리를 굽힐 것이며, 자비를 바라면서 탄원하고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한다. 내가 고백할 때에,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죄가 내 혼에서 물러갈 것임을 나는 안다. 그 용서가 죄의 결박을 풀어줄 것임을 나는 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아들일 것이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혼들에게 구원의 힘을 행사하소서. 우리는 완전을 달성하기를 원하기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6 장. 수두안교 (자이나교)

인도에서 유일한 하느님 사상—멜기세덱 가르침의 생존—을 보존해 온 신자들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이 그 당시에는 수두안 교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후에 이 신자들은 자이나교의 추종자들로서 알려졌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늘의 주는 최극이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지만, 정의의 길들을 걷는 자는 하늘에서 처소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후의 일생을 확신한다. 사람의 혼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며,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 본성을 발전시키고 완전성을 달성할 것이다. 하늘의 재산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며 최종적이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한다; 정의로운 자는 이미 죄와 그것에 연관된 모든 불행의 종말을 체험한 것이다. 자아는 사람의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며, 자아는 사람의 네 가지 가장 큰 열정으로 현시된다; 그것은 곧 분노, 자부심, 거짓, 탐욕이다. 사람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고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이 그런 해방을 대담하게 즐길 때, 그는 그것으로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그의 연관-동료 창조체들을 대우하며 일생의 여정을 여행해야 한다.”

131:5.4 (1449.7) “Lord, teach us how to live this life in the flesh while preparing for the next life of the spirit. Speak to us, Lord, and we will do your bidding. Teach us the good paths, and we will go right. Grant us that we may attain union with you. We know that the religion is right which leads to union with righteousness. God is our wise nature, best thought, and righteous act. May God grant us unity with the divine spirit and immortality in himself!

131:5.5 (1449.8) “This religion of the Wise One cleanses the believer from every evil thought and sinful deed. I bow before the God of heaven in repentance if I have offended in thought, word, or act —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 and I offer prayers for mercy and praise for forgiveness. I know when I make confession, if I purpose not to do again the evil thing, that sin will be removed from my soul. I know that forgiveness takes away the bonds of sin. Those who do evil shall receive punishment, but those who follow truth shall enjoy the bliss of an eternal salvation. Through grace lay hold upon us and minister saving power to our souls. We claim mercy because we aspire to attain perfection; we would be like God.”

6. SUDUANISM (JAINISM)

131:6.1 (1450.5) The third group of religious believers who preserved the doctrine of one God in India — the survival of the Melchizedek teaching — were known in those days as the Suduanists. Latterly these believers have become known as followers of Jainism. They taught:

131:6.2 (1450.6) “The Lord of Heaven is supreme. Those who commit sin will not ascend on high, but those who walk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shall find a place in heaven. We are assured of the life hereafter if we know truth. The soul of man may ascend to the highest heaven, there to develop its true spiritual nature, to attain perfection. The estate of heaven delivers man from the bondage of sin and introduces him to the final beatitudes; the righteous man has already experienced an end of sin and all its associated miseries. Self is man's invincible foe, and self is manifested as man's four greatest passions: anger, pride, deceit, and greed. Man's greatest victory is the conquest of himself. When man looks to God for forgiveness, and when he makes bold to enjoy such liberty, he is thereby delivered from fear. Man should journey through life treating his fellow creatures as he would like to be treated.”

제 7 장. 신교

극동지방 종교의 그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그 당시 최근의 일이었다. 그것은 가니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 종교였다. 다음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이 신앙 역시 초기 멜기세덱 가르침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나의 신성한 힘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누리고 있다. 나는 온 땅위에 의인들이 들어나는 것에서 큰 기쁨을 갖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덕목 양쪽 모두에서 하늘의 영주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의로운 자기 본성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전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나는 세상에 태어나 눈에 보이는 실존이 됨으로써 나 자신을 현시하였으며, 사람이 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굴욕마저 참았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자이다;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내 뜻에 복종한다. 나는 땅과 사해(四海)에 있는 모든 창조체의 통치자이다. 비록 내가 위대하고 최극이지만,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여긴다. 만약 어떤 창조체든지 나를 경배한다면,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그의 가슴속에 있는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사람이 번민에 짓눌릴 때마다 그는 자기 가슴에 있는 혼의 인도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진다.’ 자부심은 하느님을 방해한다. 만약 너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너의 자부심을 버려라;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갖게 되면 구원의 빛이 차단되며, 거대한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과 같다. 만약 너희가 내면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거짓과 위선을 벗어나 깨끗한 가슴으로 진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혼으로 내 앞에 왔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불멸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제 8 장. 도교

멜기세덱의 메신저들은 중국까지 깊이 들어갔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은 중국에 있는 몇몇 종교들의 초기 가르침의 일부가 되었다; 유일신을 가르치는 진리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이 바로 도교였고, 가니드는 그 창시자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최극자는 얼마나 순수하고 고요하며, 얼마나 힘세고 강하며, 또한 얼마나 깊고 헤아릴 수 없는지! 하늘에 계신 이 하느님은 만물의 영예로운 조상이시다. 만약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희는 깨우친 것이고 현명한 것이다. 만약 네가 영원자를 모른다면, 그때는 무지가 스스로 악을 현시하며 그렇게 하여 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존재는 하늘들과 땅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

7. SHINTO

131:7.1 (1451.1) Only recently had the manuscripts of this Far-Eastern religion been lodged in the Alexandrian library. It was the one world religion of which Ganid had never heard. This belief also contained remnants of the earlier Melchizedek teachings as is shown by the following abstracts:

131:7.2 (1451.2) “Says the Lord: ‘You are all recipients of my divine power; all men enjoy my ministry of mercy. I derive great pleasure in the multiplication of righteous men throughout the land. In both the beauties of nature and the virtues of men does the Prince of Heaven seek to reveal himself and to show forth his righteous nature. Since the olden people did not know my name, I manifested myself by being born into the world as a visible existence and endured such abasement even that man should not forget my name. I am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sun and the moon and all the stars obey my will. I am the ruler of all creatures on land and in the four seas. Although I am great and supreme, still I have regard for the prayer of the poorest man. If any creature will worship me, I will hear his prayer and grant the desire of his heart.’

131:7.3 (1451.3) “‘Every time man yields to anxiety, he takes one step away from the leading of the spirit of his heart.’ Pride obscures God. If you would obtain heavenly help, put away your pride; every hair of pride shuts off saving light, as it were, by a great cloud. If you are not right on the inside, it is useless to pray for that which is on the outside. ‘If I hear your prayers, it is because you come before me with a clean heart, free from falsehood and hypocrisy, with a soul which reflects truth like a mirror. If you would gain immortality, forsake the world and come to me.’”

8. TAOISM

131:8.1 (1451.4) The messengers of Melchizedek penetrated far into China, and the doctrine of one God became a part of the earlier teachings of several Chinese religions; the one persisting the longest and containing most of the monotheistic truth was Taoism, and Ganid collected the following from the teachings of its founder:

131:8.2 (1451.5) “How pure and tranquil is the Supreme One and yet how powerful and mighty, how deep and unfathomable! This God of heaven is the honored ancestor of all things. If you know the Eternal, you are enlightened and wise. If you know not the Eternal, then does ignorance manifest itself as evil, and thus do the passions of sin arise. This wondrous Being existed before the

다. 그는 진실로 영적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신다. 그는 참으로 세상의 어머니이며, 모든 창조체는 그의 주위에서 움직인다. 이 위대한 이는 자신을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탁월하게 만드시고 영존 하게 한다. 사람이 비록 지식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최고자의 길안으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참된 봉사에서의 모든 선한 일들은 최극자로부터 나온다. 만물은 생명에 대하여 위대한 근원에게 의지한다. 위대한 최극자는 자기가 증여한 것들에 대해 조금도 공로를 찾지 않는다. 그는 힘에서 최극이지만, 우리의 눈에서 띄이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감추어진 채 머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창조체들을 완전하게 하면서, 자신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변질시킨다. 하늘의 이치는 느리고 그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음이 있지만, 그의 성취는 확실하다. 최극자는 우주를 온통 뒤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 그의 넘치는 영향력과 이끄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지! 참된 선(善)은 물과 같으니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물처럼, 참된 선은 가장 낮은 곳, 아니 남들이 피하는 바닥까지도 찾아가니, 그것은 최극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최극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본성 안에서 그들을 키우시며, 영 안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한다. 최극자가 창조체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자아-주장 없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지배하지 않고 진보를 돌보시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보편화한다. 어설픈게 아는 지식은 위험한 것이다. 위대함을 열망하는 자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창조에서, 최극자는 세상의 어머니가 되었다. 자기 어머니를 아는 것은 자기가 아들신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부분을 보는 그러한 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네 자신이 마치 그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대하라. 친절함으로 모욕을 갚으라. 만약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에게 가까이 끌려오니—저희를 설득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위대한 최극자는 모든 곳에-퍼져계신다; 왼편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신다; 모든 창조를 도우시고 모든 참된 존재들 속에 거한다. 너희는 최극자를 찾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없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길이 악함을 깨닫고 가슴으로부터 죄를 뉘우친다면, 그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벌을 피할 수 있다; 화를 복으로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최극자는 모든 창조체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다; 인류의 수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만약 너희가 날마다 그를 구하면, 너희는 그를 틀림없이 찾을 것이다.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참으로 가장 귀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지

heavens and the earth were. He is truly spiritual; he stands alone and changes not. He is indeed the world's mother, and all creation moves around him. This Great One imparts himself to men and thereby enables them to excel and to survive. Even if one has but a little knowledge, he can still walk in the ways of the Supreme; he can conform to the will of heaven.

131:8.3 (1452.1) “All good works of true service come from the Supreme. All things depend on the Great Source for life. The Great Supreme seeks no credit for his bestowals. He is supreme in power, yet he remains hidden from our gaze. He unceasingly transmutes his attributes while perfecting his creatures. The heavenly Reason is slow and patient in his designs but sure of his accomplishments. The Supreme overspreads the universe and sustains it all. How great and mighty are his overflowing influence and drawing power! True goodness is like water in that it blesses everything and harms nothing. And like water, true goodness seeks the lowest places, even those levels which others avoid, and that is because it is akin to the Supreme. The Supreme creates all things, in nature nourishing them and in spirit perfecting them. And it is a mystery how the Supreme fosters, protects, and perfects the creature without compelling him. He guides and directs, but without self-assertion. He ministers progression, but without domination.

131:8.4 (1452.2) “The wise man universalizes his heart.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Those who aspire to greatness must learn to humble themselves. In creation the Supreme became the world's mother. To know one's mother is to recognize one's sonship. He is a wise man who regards all part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hole. Relate yourself to every man as if you were in his place. Recompense injury with kindness. If you love people, they will draw near you — you will have no difficulty in winning them.

131:8.5 (1452.3) “The Great Supreme is all-pervading; he is on the left hand and on the right; he supports all creation and indwells all true beings. You cannot find the Supreme, neither can you go to a place where he is not. If a man recognizes the evil of his ways and repents of sin from the heart, then may he seek forgiveness; he may escape the penalty; he may change calamity into blessing. The Supreme is the secure refuge for all creation; he is the guardian and savior of mankind. If you seek for him daily, you shall find him. Since he can forgive sins, he is indeed most precious to all men. Always remember that God does not reward man for what he does but for what he is; therefore should you extend help to your fellows without the thought of rewards. Do good without thought of benefit to the self.

말고 선을 행하라.

“영원자의 법을 아는 자들은 현명하다. 신성한 법에 무지한 자는 불행하며 재난이 뒤따른다. 하느님의 법도를 아는 자는 그 마음이 자유롭다. 만약 너희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희의 육체는 멸하지만 너희 혼은 영의 봉사 안에서 생존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무의미함을 인식할 때 너희는 진정으로 현명해진다. 너희가 영원한 이의 빛 속에 거한다면, 너희는 최극자에 대한 깨우침을 누릴 것이다. 최극자의 봉사에 자신들의 개인을 봉헌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를 추구함 속에서 즐거워한다. 사람이 죽을 때, 영은 위대한 고향으로 귀환하는 긴 여행을 날아가기 시작한다.”

131:8.6 (1452.4) “They who know the laws of the Eternal are wise. Ignorance of the divine law is misery and disaster. They who know the laws of God are liberal minded. If you know the Eternal, even though your body perish, your soul shall survive in spirit service. You are truly wise when you recognize your insignificance. If you abide in the light of the Eternal, you shall enjoy the enlightenment of the Supreme. Those who dedicate their persons to the service of the Supreme are joyous in this pursuit of the Eternal. When man dies, the spirit begins to wing its long flight on the great home journey.”

제 9 장. 유교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가장 적게 하느님을 인정하는 종교조차도, 멜기세덱 선교사들과 변치 않는 그 계승자들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교에 대한 가니드의 요약은 다음과 같았다:

“하늘의 약속에는 실수가 없다. 진리는 실재이며 신성하다. 만물은 하늘에서 나왔고, 위대한 하늘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하늘은 많은 종속들을 임명하셔서 열등한 창조체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의 향상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위대한, 아주 위대한 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힘에 있어서 장엄하시며 그 판단하심에 있어서 엄격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느님은 많은 열등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도덕적 감각을 주신다. 하늘의 은총은 끊임이 없다. 은총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다. 하늘은 사람의 혼에게 그 고상함을 베푸시며; 사람의 덕은 하늘의 고상함 자질이 주는 열매이다. 위대한 하늘은 모든 것을 식별하시고 만사에 사람과 함께 한다. 그리고 위대한 하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를 때, 우리는 만족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선조들의 하인이 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게 기도할 수도 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늘의 장엄을 경외하자. 오, 하느님이시여, 지고자시여, 다스리시는 군주시여, 우리는 심판이 당신에게 달려있음과 모든 자비가 신성한 가슴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가슴에 두려움이 없다. 모든 선행이 그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늘의 현시활동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늘은 종종 내 신앙에 어려운 요구를 한다. 만약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가슴속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틀림없이 사물들에 대한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선한 신앙 없이 살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선과 악은 원인이 없이 사람들에게 발생되지 않는다. 하늘은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의 혼과 관계를 이룬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

9. CONFUCIANISM

131:9.1 (1452.5) Even the least God-recognizing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acknowledged the monotheism of the Melchizedek missionaries and their persistent successors. Ganid's summary of Confucianism was:

131:9.2 (1452.6) “What Heaven appoints is without error. Truth is real and divine. Everything originates in Heaven, and the Great Heaven makes no mistakes. Heaven has appointed many subordinates to assist in the instruction and uplifting of the inferior creatures. Great, very great, is the One God who rules man from on high. God is majestic in power and awful in judgment. But this Great God has conferred a moral sense even on many inferior people. Heaven's bounty never stops. Benevolence is Heaven's choicest gift to men. Heaven has bestowed its nobility upon the soul of man; the virtues of man are the fruit of this endowment of Heaven's nobility. The Great Heaven is all-discerning and goes with man in all his doings. And we do well when we call the Great Heaven our Father and our Mother. If we are thus servants of our divine ancestors, then may we in confidence pray to Heaven. At all times and in everything let us stand in awe of the majesty of Heaven. We acknowledge, O God, the Most High and sovereign Potentate, that judgment rests with you, and that all mercy proceeds from the divine heart.

131:9.3 (1453.1) “God is with us; therefore we have no fear in our hearts. If there be found any virtue in me, it is the manifestation of Heaven who abides with me. But this Heaven within me often makes hard demands on my faith. If God is with me, I have determined to have no doubt in my heart. Faith must be very near the truth of things, and I do not see how a man can live without this good faith. Good and evil do not befall men without cause. Heaven deals with man's soul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When you find yourself in the wrong, do not hesitate to confess

고 너희 잘못을 고백하고 재빨리 보상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몰두되며, 단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되지는 않는다. 하늘의 완전함을 달성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이다. 우월한 사람은 자아-조절에 열중하기 좋아하며,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하느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의 가슴속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 모든 선한 행실은 그 보상을 받는다. 우월한 사람은 하늘을 상대하여 투덜대지 않고 사람들을 상대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 너희 자신에게 행하였을 때 너희가 좋아하지 않을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징벌에서 연민이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그 어떤 길에서도 징벌이 축복이 되도록 참아내라. 그것이 위대한 하늘의 길이다. 모든 창조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고귀한 사람의 영은 높은 곳에 전시되며 최종적 밝음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빛에 이르기까지 상승한다.”

제 10 장. “우리의 종교”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관한 세계 종교의 가르침들을 모은 이 자료집을 완성하는 어려운 작업을 마치고 나서, 가니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자신이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던 그 믿음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임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 젊은이는 그러한 믿음을 습관적으로 “우리의 종교”라고 부르곤 하였는데,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주님 우리의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동시에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한 분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시며, 만물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진지한 인간의 모든 혼속에 영으로 거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실한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혼을 어떻게 의탁해야 하는 지 배워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만물과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에, 거기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매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를 우리 동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느님의 성격 속에 있는 신성한 풍성함은 무한히 깊고 영원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없지만, 개인적 체험을 통해 우리의 가슴 안에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공의는 지나간 후에야 발견될 수 있는 반면에, 그분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동안에, 그분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거한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적이고 필사 이지만, 사람의 영은 신성하며 불멸한다. 하느님은 만능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지혜를 갖추고 계시다. 만약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들이, 악한 경향이 있음에도

your error and be quick to make amends.

131:9.4 (1453.2) “A wise man is occupied with the search for truth, not in seeking for a mere living. To attain the perfection of Heaven is the goal of man. The superior man is given to self-adjustment, and he is free from anxiety and fear. God is with you; have no doubt in your heart. Every good deed has its recompense. The superior man murmurs not against Heaven nor holds a grudge against men. What you do not like when done to yourself, do not to others. Let compassion be a part of all punishment; in every way endeavor to make punishment a blessing. Such is the way of Great Heaven. While all creatures must die and return to the earth, the spirit of the noble man goes forth to be displayed on high and to ascend to the glorious light of final brightness.”

10. “OUR RELIGION”

131:10.1 (1453.3) After the arduous labor of effecting this compilation of the teachings of the world religions concerning the Paradise Father, Ganid set himself to the task of formulating what he deemed to be a summary of the belief he had arrived at regarding God as a result of Jesus' teaching. This young man was in the habit of referring to such beliefs as “our religion.” This was his record:

131:10.2 (1453.4)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and you should love him with all your mind and heart while you do your very best to love all his children as you love yourself. This one God is our heavenly Father, in whom all things consist, and who dwells, by his spirit, in every sincere human soul. And we who are the children of God should learn how to commit the keeping of our souls to him as to a faithful Creator. With our heavenly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Since he is the Creator, having made all things and all beings, it could not be otherwise. Though we cannot see God, we can know him. And by daily liv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we can reveal him to our fellow men.

131:10.3 (1453.5) “The divine riches of God's character must be infinitely deep and eternally wise. We cannot search out God by knowledge, but we can know him in our hearts by personal experience. While his justice may be past finding out, his mercy may be received by the humblest being on earth. While the Father fills the universe, he also lives in our hearts. The mind of man is human, mortal, but the spirit of man is divine, immortal. God is not only all-powerful but also all-wise. If our earth parents, being of evil tendency, know how to love their children and bestow good gifts on them,

불구하고, 자기들의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안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지혜롭게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축복을 내리시는 방법을 얼마나 당연히 더 잘 아실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찾기 바라고 진실로 그와 같이 되려고 원하는 한, 이 세상에서 한 자녀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악인조차 사랑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도 언제나 친절하시다. 만약 더 많은 인간 존재들이 하느님의 선함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악한 기질을 후회하고 모든 알려진 죄를 떠날 것이다. 모든 선한 것들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며, 그의 속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변화의 그림자도 없으시다. 참 하느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하느님이 그들을 찾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은 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가 또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내가 실제로 하느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조력자가 되시는 진리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항상 힘 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떠하심을 알아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필사자인 내 이웃 각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나는 내 곁에 있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 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이러한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의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싶다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들의 사랑 넘치는 이 모든 봉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에서의 사명활동의 높은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우리의 수용능력을 확대한다.

“나는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들로 인하여 하느님께 매일 감사할 것이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한 그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할 것이다. 내게 있어서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권능이시며 자비이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내 영의 아버지시며,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선생님은 내가 그분을 갈구함으로써 그를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나는 그분과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의 이 새로운 종교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것은 영구적인 행복을 준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신실할 것임을 확신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모든 것을 증거 하는 것과 선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새로운 이 신앙으로 인하여, 나는 사

how much more must the good Father in heaven know how wisely to love his children on earth and to bestow suitable blessings upon them.

131:10.4 (1454.1) “The Father in heaven will not suffer a single child on earth to perish if that child has a desire to find the Father and truly longs to be like him. Our Father even loves the wicked and is always kind to the ungrateful. If more human beings could only know about the goodness of God, they would certainly be led to repent of their evil ways and forsake all known sin. All good things come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 in whom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The spirit of the true God is in man's heart. He intends that all men should be brothers. When men begin to feel after God, that is evidence that God has found them, and that they are in quest of knowledge about him. We live in God and God dwells in us.

131:10.5 (1454.2) “I will no longer be satisfied to believe that God is the Father of all my people; I will henceforth believe that he is also *my* Father. Always will I try to worship God with the help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is my helper when I have become really God-knowing. But first of all I am going to practice worshiping God by learning how to do the will of God on earth; that is, I am going to do my best to treat each of my fellow mortals just as I think God would like to have him treated. And when we live this sort of a life in the flesh, we may ask many things of God, and he will give us the desire of our hearts that we may be the better prepared to serve our fellows. And all of this loving service of the children of God enlarges our capacity to receive and experience the joys of heaven, the high pleasures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of heaven.

131:10.6 (1454.3) “I will every day thank God for his unspeakable gifts; I will praise him for his wonderful works to the children of men. To me he is the Almighty, the Creator, the Power, and the Mercy, but best of all, he is my spirit Father, and as his earth child I am sometime going forth to see him. And my tutor has said that by searching for him I shall become like him. By faith in God I have attained peace with him. This new religion of ours is very full of joy, and it generates an enduring happiness. I am confident that I shall be faithful even to death, and that I will surely receive the crown of eternal life.

131:10.7 (1454.4) “I am learning to prove all things and adhere to that which is good. Whatsoever I would that men should do to me, that I will do to my fellows. By this new faith I know that man may

람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생각을 멈추어 생각해 보면 때때로 두려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 생각은 진실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기쁨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나는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나는 은밀하게 선을 행할 것이다; 또한 나는 홀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내 이웃들을 부당할지 모를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하느님과-같음이 되는 이 실천을 아직 참되게 숙달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다른 종교들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우리의 종교’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자비롭고 인간적이며 적극적인 존재로서 그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 이신 것과;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방법을 제외한, 단지 그와 같아지려는 거짓 없는 원함을 통하여, 나는 결국에는 그를 발견할 것이며, 그리하여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드디어 나는 한 하느님, 장엄한 하느님의 종교를 갖게 되었고, 그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become the son of God, but it sometimes terrifies me when I stop to think that all men are my brothers, but it must be true. I do not see how I can rejoice in the fatherhood of God while I refuse to accept the brotherhood of man. Whosoever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If that is true, then all men must be my brothers.

131:10.8 (1454.5) “Henceforth will I do my good deeds in secret; I will also pray most when by myself. I will judge not that I may not be unfair to my fellows. I am going to learn to love my enemies; I have not truly mastered this practice of being Godlike. Though I see God in these other religions, I find him in ‘our religion’ as being more beautiful, loving, merciful, personal, and positive. But most of all, this great and glorious Being is my spiritual Father; I am his child. And by no other means than my honest desire to be like him, I am eventually to find him and eternally to serve him. At last I have a religion with a God, a marvelous God, and he is a God of eternal salvation.”

제 132 편 로마 체류 기간

⇨ 131

유랜시아 책

13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2 편 로마 체류 기간

색션

소개

제 1 장. 참된 가치

제 2 장. 선과 악

제 3 장. 진리와 신앙

제 4 장. 개인적 사명활동

제 5 장. 부자에게 준 조언

제 6 장. 사회적인 사명활동

제 7 장. 로마 근처를 여행함

PAPER 132

THE SOJOURN AT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True Values

2. Good and Evil

3. Truth and Faith

4. Personal Ministry

5. Counseling the Rich Man

6. Social Ministry

7. Trips about Rome

소개

고노드는 인도의 영주(領主)들로부터 로마인 통치자인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지 3일 후에 이 두 사람의 인도인들과 예수는 티베리우스를 만나러 갔다. 성미가 괴팍한 황제는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리 매우 기분이 좋았고 이 세 사람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러가자, 황제는 예수를 언급하면서, 오른 쪽에 서 있던 측근에게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왕다운 자태와 우아한 태도를 가졌다면, 내가 실제 황제가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마디 하였다.

로마에 있는 동안, 가니드는 공부와 도시 근처의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데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처리할 사업상 거래가 많았고, 자기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거대한 상업적 이익의 관리에 있어서 값진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 소년을 사업세계에 입문시킬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로마에는 많은 인도인들이 있었으며, 고노드가 직접 채용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그를 위해 통역을 자주 맡아 주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는 하루 종일 혼자서 보내곤 하였다; 이것이 200만 명의 주민을 가진 이 도시를 살살이 눈에 익힐 시간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정치, 사법, 그리고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토론광장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 그는 카피톨

INTRODUCTION

132:0.1 (1455.1) SINCE Gonod carried greetings from the princes of India to Tiberius, the Roman ruler, on the third day after their arrival in Rome the two Indians and Jesus appeared before him. The morose emperor was unusually cheerful on this day and chatted long with the trio. And when they had gone from his presence, the emperor, referring to Jesus, remarked to the aide standing on his right, “If I had that fellow’s kingly bearing and gracious manner, I would be a real emperor, eh?”

132:0.2 (1455.2) While at Rome, Ganid had regular hours for study and for visiting places of interest about the city. His father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and desiring that his son grow up to become a worthy successor in the management of his vast commercial interests, he thought the time had come to introduce the boy to the business world. There were many citizens of India in Rome, and often one of Gonod’s own employees would accompany him as interpreter so that Jesus would have whole days to himself; this gave him time in which to become thoroughly acquainted with this city of two million inhabitants. He was frequently to be found in the forum, the

리움에 종종 올라갔고 거기서 쥬피터와 쥬노와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이들 로마인이 붙들려 있는 무지의 사슬에 대해 깊이 묵상하였다. 그는 또한 팔라틴 언덕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는 황제의 저택과 아폴로 신전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 도서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의 로마제국은 남부 유럽 전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시민들도 포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세계적인 집합체를 공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욕망이, 예수가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승낙한 주된 이유였다.

예수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가 이 도시에서 6개월 체류기간 동안 가졌던 다양한 모든 체험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제국의 수도에 있는 종교 영도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로마에서의 첫 주간에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는 견유학과, 스토아학과, 신비종파, 그리고 특히 미트라를 숭배하는 집단의 쓸 만한 영도자들을 찾아내었고, 그들과 친숙해졌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유대인들이 명백하게 배척할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의 메신저들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얼마 안 있어서 로마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복음이 좀 더 수월하고도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미리 길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스토아학과 중에서 뛰어난 5명, 견유학과에서 11명, 그리고 신비-예배종파의 영도자 중에서 16명을 선택하였고, 거의 6개월 동안의 남는 시간 대부분을 이들 종교 선생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보냈다. 그가 가르친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내포하는 실수들이나 결점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우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를 분리해 낸 후에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갖추어지고 밝게 빛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진리가 강화되어, 연관되어 있던 실수를 효과적으로 밀어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가-가르쳤던 이 남녀들은, 나중에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좀 더 첨부되고 비슷한 진리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복음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그곳으로부터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강력한 촉진제가 제공되었다.

주목할 만한 이 행동의 의의는 우리가 기록하려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더 잘 납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로마에서 가르쳤던 32명의 종교 영도자들 중에서 단지 2명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과; 나머지 30명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들이 되었고,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미트라교 신전이 그 도시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로 바

center of political, legal, and business life. He often went up to the Capitolium and pondered the bondage of ignorance in which these Romans were held as he beheld this magnificent temple dedicated to Jupiter, Juno, and Minerva. He also spent much time on Palatine hill, where were located the emperor's residence, the temple of Apollo, and the Greek and Latin libraries.

132:0.3 (1455.3) At this time the Roman Empire included all of southern Europe, Asia Minor, Syria, Egypt, and northwest Africa; and its inhabitants embraced the citizens of every country of the Eastern Hemisphere. His desire to study and mingle with this cosmopolitan aggregation of Urantia mortals was the chief reason why Jesus consented to make this journey.

132:0.4 (1455.4) Jesus learned much about men while in Rome, but the most valuable of all the manifold experiences of his six months' sojourn in that city was his contact with, and influence upon,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empire's capital. Before the end of the first week in Rome Jesus had sought out, and had made the acquaintance of, the worthwhile leaders of the Cynics, the Stoics, and the mystery cults, in particular the Mithraic group. Whether or not it was apparent to Jesus that the Jews were going to reject his mission, he most certainly foresaw that his messengers were presently coming to Rome to proclaim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therefore set about, in the most amazing manner, to prepare the way for the better and more certain reception of their message. He selected five of the leading Stoics, eleven of the Cynics, and sixteen of the mystery-cult leaders and spent much of his spare time for almost six months in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se religious teachers. And this was his method of instruction: Never once did he attack their errors or even mention the flaws in their teachings. In each case he would select the truth in what they taught and then proceed so to embellish and illuminate this truth in their minds that in a very short time this enhancement of the truth effectively crowded out the associated error; and thus were these Jesus-taught men and women prepared for the subsequent recognition of additional and similar truths in the teachings of the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It was this early acceptance of the teachings of the gospel preachers which gave that powerful impetus to the rapid spread of Christianity in Rome and from there throughout the empire.

132:0.5 (1456.1) The significance of this remarkable doing can the better be understood when we record the fact that, out of this group of thirty-two Jesus-taught religious leaders in Rome, only two were unfruitful; the thirty became pivotal individuals i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ity in Rome, and certain of them also aided in turning the chief Mithraic temple into the first Christian church of

뛰는데 있어서 공헌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인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로서는, 그리고 19세기 시대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교가 빨리 퍼지도록 하는 무대를 일찍부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가치를 갖는 정확하게 세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시몬 베드로를 사도(使徒)로 선택하고 유지한 점.

2. 스테반과의 예루살렘에서의 대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르수스의 사울을 얻게 되었던 점.

3. 로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의 영도자관계가 되도록 30명의 이 로마인들을 미리 준비시킨 점.

스테반이나, 혹은 선택된 30명의 로마인도, 자신들의 모든 체험을 이루는 동안, 자기들이 한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의 이름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하였다. 기원적인 32명을 위하여 행한 예수님의 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었다. 이들 개별존재들에 대한 그의 노력에서,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은 결코 그들 중 세 사람 이상을 한 번에 만나지 않았으며, 두 사람 이상을 만나는 경우도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혼자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종교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전통에 속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미래의 모든 종교적 발달 과정과는 달리, 고정된 선입견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몇 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신속하게 뒤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로마에 온 다른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앞장섰던,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그리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상하였던 대로) 그 길을 준비해 놓았던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바울은 비록 이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의 정체성을 한 번도 실제로 추측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에 대한 개인적 설명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안디옥의 천막-만드는 자”가 바로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번은, 시몬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는 동안, 다마스커스의 서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였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지만, 그는 자기 스승이 로마에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곧 그 관념을 지워버렸다.

제 1 장. 참된 가치

로마 체류기간의 초기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영도자인 앙가몬이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친구가 되었고,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앙가

that city. We who view human activities from behind the scenes and in the light of nineteen centuries of time recognize just three factors of paramount value in the early setting of the stage for the rapid spread of Christianity throughout Europe, and they are:

132:0.6 (1456.2) 1. The choosing and holding of Simon Peter as an apostle.

132:0.7 (1456.3) 2. The talk in Jerusalem with Stephen, whose death led to the winning of Saul of Tarsus.

132:0.8 (1456.4) 3. The preliminary preparation of these thirty Romans for the subsequent leadership of the new religion in Rome and throughout the empire.

132:0.9 (1456.5) Through all their experiences, neither Stephen nor the thirty chosen ones ever realized that they had once talked with the man whose name became the subject of their religious teaching. Jesus' work in behalf of the original thirty-two was entirely personal. In his labors for these individuals the scribe of Damascus never met more than three of them at one time, seldom more than two, while most often he taught them singly. And he could do this great work of religious training because these men and women were not tradition bound; they were not victims of a settled preconception as to all future religious developments.

132:0.10 (1456.6) Many were the times in the years so soon to follow that Peter, Paul, and the other Christian teachers in Rome heard about this scribe of Damascus who had preceded them, and who had so obviously (and as they supposed unwittingly) prepared the way for their coming with the new gospel. Though Paul never really surmised the identity of this scribe of Damascus, he did, a short time before his death,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personal descriptions,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tentmaker of Antioch” was also the “scribe of Damascus.” On one occasion, while preaching in Rome, Simon Peter, on listening to a description of the Damascus scribe, surmised that this individual might have been Jesus but quickly dismissed the idea, knowing full well (so he thought) that the Master had never been in Rome.

1. TRUE VALUES

132:1.1 (1456.7) It was with Angamon, the leader of the Stoics, that Jesus had an all-night talk early during his sojourn in Rome. This man subsequently became a great friend of Paul and proved to be one of the strong supporters of the

몬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다시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된 가치관의 기준은 영적 세계에서와 영원한 실체의 신성한 차원들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상승하는 필사자에게는, 저급하고 물질적인 모든 기준들은 과도기적이고, 부분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지되어야만 한다. 과학자들은 물질적 사실들의 관계성을 발견하는 데에, 그렇게 나름대로 국한된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이 물질주의자나 혹은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이는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바로 철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를 저버리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만일 인류의 도덕적 통찰력과 영적 달성이 균형 잡힌 비례로 증강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물질적인 문화의 무제한적인 발전은 결국에는 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은 모든 과학적 투쟁성과를 파괴하는 잠재적 씨앗을 그 자체 내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로써 바로 이러한 속성은, 한 문명이 스스로 도덕적 가치감각을 포기해 가고 그리고 영적 달성목표를 배척해 가는 그러한 문명의 궁극적 붕괴를 가져오는 전조가 된다.

물질적인 과학자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항상 치고받으며 다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영적 시험 차원의 상식적 기준을 소유한 저들 과학자와 이상주의자에게는 참말이 아니다. 모든 시대에서, 과학자들과 종교가들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의 진보를 이루는 봉사에 더욱 더 헌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정당화하려고 용감하게 분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서로간의 모든 전쟁을 피해야만 한다. 만약에 어떤 시대의 이른바 과학이나 종교가 거짓되다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질서의 물질적 과학 또는 영적 종교가 창발하기 전에 그것들의 활동들이 정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만 한다.

제 2 장. 선과 악

마르두스는 로마에서 유명한 견유학과 영도자였으며,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고, 밤마다 그의 숭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중요한 토론들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이 진지한 견유학자의 질문에 답변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 있었다. 예수가 말한 내용을 20세기 언어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형제여, 선(善)과 악(惡)이란 말은, 관찰 가능한 우주에 대하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상대적 차원을 상징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만일 네가 윤리적으로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면, 현재의 사회적 풍습들을 선에 대한 너의 기준으로

Christian church at Rome. In substance,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taught Angamon:

132:1.2 (1457.1) The standard of true values must be looked for in the spiritual world and on divine levels of eternal reality. To an ascending mortal all lower and material standards must be recognized as transient, partial, and inferior. The scientist, as such, is limited to the discovery of the relatedness of material facts. Technically, he has no right to assert that he is either materialist or idealist, for in so doing he has assumed to forsake the attitude of a true scientist since any and all such assertions of attitude are the very essence of philosophy.

132:1.3 (1457.2) Unless the moral insight and the spiritual attainment of mankind are proportionately augmented, the unlimited advancement of a purely materialistic culture may eventually become a menace to civilization. A purely materialistic science harbors within itself the potential seed of the destruction of all scientific striving, for this very attitude presages the ultimate collapse of a civilization which has abandoned its sense of moral values and has repudiated its spiritual goal of attainment.

132:1.4 (1457.3) The materialistic scientist and the extreme idealist are destined always to be at loggerheads. This is not true of those scientists and idealists who are in possession of a common standard of high moral values and spiritual test levels. In every age scientists and religionists must recognize that they are on trial before the bar of human need. They must eschew all warfare between themselves while they strive valiantly to justify their continued survival by enhanced devotion to the service of human progress. If the so-called science or religion of any age is false, then must it either purify its activities or pass away before the emergence of a material science or spiritual religion of a truer and more worthy order.

2. GOOD AND EVIL

132:2.1 (1457.4) Mardus was the acknowledged leader of the Cynics of Rome, and he became a great friend of the scribe of Damascus. Day after day he conversed with Jesus, and night upon night he listened to his supernal teaching. Among the more important discussions with Mardus was the one designed to answer this sincere Cynic's question about good and evil. In substance, and in twentieth-century phraseology, Jesus said:

132:2.2 (1457.5) My brother, good and evil are merely words symbolizing relative levels of human comprehension of the observable universe. If you are ethically lazy and socially indifferent, you can take as your standard of good the current social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네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진보적이지 못하다면, 너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실천 관행과 전통을 너의 선의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그러나 시간에서 생존하여 영원 안에서 창발 하는 혼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람의 가슴 안에 거하도록 보내 준 신성한 영에 의해 세운 영적 기준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따라 그들이 결정 되는대로 그에 따라, 선과 악 사이에서 활력을 주는 그리고 개인적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이러한 내주(內住)하는 영이 바로 개인성 생존의 기준인 것이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선이란 항상 상대적이며, 반드시 악과 대조된다. 이들 선과 진리의 본질특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영원한 생존에 필수 요소인 선택을 그러한 개인적 결정으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과학적 명령과 사회적 관례 그리고 종교적 독단론을 논리적으로 따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개별존재는, 자신의 도덕적 자유를 희생하고 영적 해방을 잃는 심각한 위험 속에 처해 있다. 그러한 혼은 지적 앵무새나 사회적 자동장치 또는 종교적 권한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선(善)은 도덕적인 자아-실현과 영적 개인성의 달성—내주하는 조절자의 발견, 그리고 조절자와의 정체화구현—이라는 증가하는 해방의 새로운 차원들을 향하여 항상 성장한다. 체험이란, 그것이 아름다움(美)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고, 도덕적 의지를 강화시키고, 진리에 대한 식별력을 증강시키고,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힘을 확대하고, 영적 이상을 고양(高揚)시키고, 시간에서의 최극의 인간 동기를 내주하는 조절자의 영원한 계획과 통합할 때. 선(善)하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소망이 커지도록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그로써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더욱 닮아가려는 신성한 열정을 육성시킨다.

네가 창조체 발전의 우주 눈금을 상승해감에 따라서, 선을-체험하는 그리고 진리를-식별하는 너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완전 안에서 증가되는 선과 감소하고 있는 악을 너는 발견할 것이다. 상승하는 인간의 혼이 최종 영적 차원을 성취할 때까지는, 실수를 품거나 악을 체험하는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선(善)은 살아있고, 상대적이며, 항상 진보하고, 변함없는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며, 진리(眞)와 아름다움(美)을 식별하는 것과 영구적으로 상관관계되어 있다. 선은 영적 차원의 긍정적 진리-가치를 인지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며, 긍정적 진리의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체험 안에서, 부정적 복사본—잠재적 악의 그림자—과 대조되어야만 한다.

네가 파라다이스의 차원들을 달성할 때까지, 선은 항상 달성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이 될 것이며, 소유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추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usages. If you are spiritually indolent and morally unprogressive, you may take as your standards of good the religious practices and traditions of your contemporaries. But the soul that survives time and emerges into eternity must make a living and personal choice between good and evil as they are determined by the true values of the spiritu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divine spirit which the Father in heaven has sent to dwell within the heart of man. This indwelling spirit is the standard of personality survival.

132:2.3 (1457.6) Goodness, like truth, is always relative and unfailingly evil-contrasted. It is the perception of these qualities of goodness and truth that enables the evolving souls of men to make those personal decisions of choice which are essential to eternal survival.

132:2.4 (1458.1) The spiritually blind individual who logically follows scientific dictation, social usage, and religious dogma stands in grave danger of sacrificing his moral freedom and losing his spiritual liberty. Such a soul is destined to become an intellectual parrot, a social automaton, and a slave to religious authority.

132:2.5 (1458.2) Goodness is always growing toward new levels of the increasing liberty of moral self-realization and spiritual personality attainment — the discovery of, and identification with, the indwelling Adjuster. An experience is good when it heightens the appreciation of beauty, augments the moral will, enhances the discernment of truth, enlarges the capacity to love and serve one's fellows, exalts the spiritual ideals, and unifies the supreme human motives of time with the eternal plans of the indwelling Adjuster, all of which lead directly to an increased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thereby fostering the divine passion to find God and to be more like him.

132:2.6 (1458.3) As you ascend the universe scale of creature development, you will find increasing goodness and diminishing evil in perfect accordance with your capacity for goodness-experience and truth-discernment. The ability to entertain error or experience evil will not be fully lost until the ascending human soul achieves final spirit levels.

132:2.7 (1458.4) Goodness is living, relative, always progressing, invariably a personal experience, and everlastingly correlated with the discernment of truth and beauty. Goodness is found in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truth-values of the spiritual level, which must, in human experience, be contrasted with the negative counterpart — the shadows of potential evil.

132:2.8 (1458.5) Until you attain Paradise levels, goodness will always be more of a quest than a possession, more of a goal than an experience of attainment. But even as you hunger and thirst for

하며 나아갈 지라도, 부분적인 선의 달성 안에서 증가되어 가는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도덕적 의지의 실존과 실체, 이들 가치들을 그래서 정체화하고 또한 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성의 실존과 실체를, 그 자체로서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파라다이스의 달성 시기가 이르게 되면, 자아를 진정한 영적 가치들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수용능력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완전성의 달성으로 결과를 낳기까지 그렇게 확대된다. 그렇게 완전해진 영 개인성은, 너무나도 전적으로, 신성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선함(善), 아름다움(美), 그리고 진리(眞)의 적극적이고도 최극의 본질특성과 통합되어지기 때문에 무한한 파라다이스 통치자의 신성한 빛의 날카로운 영은 그 어떠한 잠재 악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아무런 가능성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모든 영적 개인성에서, 선(善)은 더 이상 부분적이거나, 대조적이거나,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완성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극자의 순수함과 완전성에 가까워진다.

악의 가능성은 도덕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재성은 아니다. 그림자는 단지 상대적으로 실재이다. 실재적인 악은 하나의 개인적 체험으로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악은, 영적 발전의 낮은 차원들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진보의 영역 안에서 결단을 이루는 하나의 자극제로 똑같이 잘 작용한다. 악은 오직 도덕적 마음이 악을 선택했을 때에만, 하나의 개인적 체험의 실체가 된다.

제 3 장. 진리와 신앙

나본은 그리스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으뜸 신비 예배종파인 미트라교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영도자였다. 미트라교의 이 고위 사제는, 다마스커스의 서기관과 가진 여러 번의 만남 중에서, 어느 날 저녁 나누었던 진리와 신앙에 관한 토론으로 가장 변함없는 영향을 받았다. 나본은 예수를 개종시키려고 생각하였었고 미트라교의 선생이 되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제의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예수가 왕국 복음에 대한 초기 개종자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가 가르친 요지를 현대 용어로 다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진리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삶에 의해서만 정의(定意)되어질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지식 이상의 것이다. 지식은 관찰할 수 있는 사물들과 관계되지만, 진리는 그러한 순전히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지혜와 조화롭게 어울리고 그리고 인간 체험처럼 그렇게 가치를 달아볼 수 없는 것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적인 그리고 삶 실체들까지 포용한다. 지식은 과학에

righteousness, you experience increasing satisfaction in the partial attainment of goodness. The presence of goodness and evil in the world is in itself positive proof of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man's moral will, the personality, which thus identifies these values and is also able to choose between them.

132:2.9 (1458.6) By the time of the attainment of Paradise the ascending mortal's capacity for identifying the self with true spirit values has become so enlarged as to result in the attainment of the perfection of the possession of the light of life. Such a perfected spirit personality becomes so wholly, divinely, and spiritually unified with the positive and supreme qualities of goodness, beauty, and truth that there remains no possibility that such a righteous spirit would cast any negative shadow of potential evil when exposed to the searching luminosity of the divine light of the infinite Rulers of Paradise. In all such spirit personalities, goodness is no longer partial, contrastive, and comparative; it has become divinely complete and spiritually replete; it approaches the purity and perfection of the Supreme.

132:2.10 (1458.7) The possibility of evil is necessary to moral choosing, but not the actuality thereof. A shadow is only relatively real. Actual evil is not necessary as a personal experience. Potential evil acts equally well as a decision stimulus in the realms of moral progress on the lower levels of spiritual development. Evil becomes a reality of personal experience only when a moral mind makes evil its choice.

3. TRUTH AND FAITH

132:3.1 (1459.1) Nabon was a Greek Jew and foremost among the leaders of the chief mystery cult in Rome, the Mithraic. While this high priest of Mithraism held many conferences with the Damascus scribe, he was most permanently influenced by their discussion of truth and faith one evening. Nabon had thought to make a convert of Jesus and had even suggested that he return to Palestine as a Mithraic teacher. He little realized that Jesus was preparing him to become one of the early convert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the substance of Jesus' teaching was:

132:3.2 (1459.2) Truth cannot be defined with words, only by living. Truth is always more than knowledge. Knowledge pertains to things observed, but truth transcends such purely material levels in that it consorts with wisdom and embraces such imponderables as human experience, even spiritual and living realities. Knowledge originates in science; wisdom, in true

근원을 두고 있다; 지혜는 진정한 철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진리는 영적 삶의 종교적 체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지식은 사실들을 다룬다; 지혜는 관계들을 다룬다; 진리는 실체 가치들을 다룬다.

사람은 과학을 결정화하고, 철학을 정형화하며, 진리를 독단화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발전적인 투쟁에 적응시키는 일에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해 끔찍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사람은 자신의 사고의 습관이나 자신의 삶의 기법들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둔하다.

계시된 진리, 개인적으로 발견된 진리는, 인간 혼의 최극의 기쁨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마음과 내재하는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진리(眞)를 식별하고 아름다움(美)을 사랑하는 이 혼의 영원한 구원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을 찾으며 그를 닮아가려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개발하도록 이 필사자를 인도하는 선(善)에 대한 굽주림과 목마름에 의하여 확인된다. 진정한 지식과 진리 사이에는 아무 충돌이 없다. 지식과 인간 신념들, 편견으로 채색되고, 두려움에 의해 변형되고, 물질적 발견이나 영적 진보의 새로운 사실들에 대처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지배를 당하는 신념들 사이에서는 아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신앙의 실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과 지혜 그리고 윤리와 이상들이 그 자신의 신앙, 자신의 최고의 희망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참된 신앙은 심오한 반영과, 진지한 자아-비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의식 위에 세워진다. 신앙은 영성화된 창조적 상상력의 영감이다.

신앙은 신성한 불꽃의 초인간적 활동, 불멸하는 씨앗들이 이루어지도록 작용하는데, 그 씨앗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존의 잠재자이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자기와 동일한 입자들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하는 기법에 의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존한다. 사람의 인간 혼(개인성)은 내주하는 이 신성의 불꽃과 관계적-연합하는 정체성에 의하여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으며, 그 불꽃은 불멸하는 것이고, 인간의 개인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이며 더 높은 차원의 진보적 우주 실존으로서 영속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 혼의 그 숨겨진 씨앗은 하나의 불멸하는 영이다. 혼의 두 번째 세대는, 영적이고 진보하는 실존들의 개인성 현시활동이며, 이것은 오직 이 신성한 실존개체가 그 실존의 근원, 모든 실존의 개인적 근원, 하느님, 우주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에만 끝나는 그 개인성 현시활동의 첫 번째 계승이다.

인간의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생존한다.—이는 그것이 하나의 우주 기능, 하느님을 찾아내는 과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신앙-활성화된 사람의 혼은, 이러한 운명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할 수 없으며; 일단 이러한 신성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하느님 처럼—

philosophy; truth, i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spiritual living. Knowledge deals with facts; wisdom, with relationships; truth, with reality values.

132:3.3 (1459.3) Man tends to crystallize science, formulate philosophy, and dogmatize truth because he is mentally lazy in adjusting to the progressive struggles of living, while he is also terribly afraid of the unknown. Natural man is slow to initiate changes in his habits of thinking and in his techniques of living.

132:3.4 (1459.4) Revealed truth, personally discovered truth, is the supreme delight of the human soul; it is the joint creation of the material mind and the indwelling spirit. The eternal salvation of this truth-discerning and beauty-loving soul is assured by that hunger and thirst for goodness which leads this mortal to develop a singleness of purpose to do the Father's will, to find God and to become like him. There is never conflict between true knowledge and truth.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knowledge and human beliefs, beliefs colored with prejudice, distorted by fear, and dominated by the dread of facing new facts of material discovery or spiritual progress.

132:3.5 (1459.5) But truth can never become man's possession without the exercise of faith. This is true because man's thoughts, wisdom, ethics, and ideals will never rise higher than his faith, his sublime hope. And all such true faith is predicated on profound reflection, sincere self-criticism, and uncompromising moral consciousness. Faith is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ized creative imagination.

132:3.6 (1459.6) Faith acts to release the superhuman activities of the divine spark, the immortal germ, that lives within the mind of man, and which is the potential of eternal survival. Plants and animals survive in time by the technique of passing o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dentical particles of themselves. The human soul (personality) of man survives mortal death by identity association with this indwelling spark of divinity, which is immortal, and which functions to perpetuate the human personality upon a continuing and higher level of progressive universe existence. The concealed seed of the human soul is an immortal spirit.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soul is the first of a succession of personality manifestations of spiritual and progressing existences, terminating only when this divine entity attains the source of its existence, the personal source of all existence, God, the Universal Father.

132:3.7 (1459.7) Human life continues — survives — because it has a universe function, the task of finding God. The faith-activated soul of man cannot stop short of the attainment of this goal of destiny; and when it does once achieve this divine goal, it can never end because it has become like

영원히—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수 없다.

영적 진화는, 선(善)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체험이며, 그로서 악할 가능성이 대등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선(善)에 대한 선택의 최종과 진리의 깊은 인식에 대한 완벽한 수용능력을 달성과 함께, 그 정의가 잠재 악의 개념조차도 창발될 가능성을 영원히 금지되는 그러한 아름다움(美)과 거룩함에 대한 완전성이 실존으로서 나오게 한다. 하느님을-아는 그러한 혼은, 신성한 선이라는 그러한 높은 영적 차원에서 작용할 때, 의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악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파라다이스 영의 현존은, 우주 아버지의 불멸적이고 내주 하는 이 영 단편과의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혼을 위한 신성한 진보의 영원한 실존의 계시 약속과 신앙 서약을 성립시킨다.

우주의 진보의 특징은 개인성 해방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아-납득과 그로 인한 자발적 자아-억제라는 더욱 높고 높은 차원들에 대한 진보적인 달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영적 자아-절제의 완전의 달성은, 우주 자유와 개인적 해방의 완성과 같다. 신앙은 그러한 광대한 우주 안에 적응하는 초기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혼을 돌보고 관리하며, 그에 반하여 기도는, 내주하고 연관된 신성한 현존의 영적 이상들로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혼의 신앙적 충동들과 창조적인 상상력의 다양한 영감을 놀라운 정도로 통합시켜 준다.

나본은 예수와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말들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이 진리들은 그의 가슴속에서 계속하여 타올랐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도착한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제 4 장. 개인적 사명활동

예수는 로마에 있는 동안, 앞으로 도래할 왕국에 대한 장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그의 모든 여가시간을 다 소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인종들과 계층들의 남녀 사람들에게 대한 상세한 지식들을 수집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수많은 인간들과의 접촉들마다, 예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육신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들의 반응들을 알고 싶었고, 또한 그들의 일생을 더 풍부하고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하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시절 동안의 그의 종교적 가르침들은, 그의 후반기 일생에 열 두 제자들의 선생이었을 때와 많은 군중들의 설교자였을 때 행했던 가르침들의 특징이었던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God — eternal.

132:3.8 (1460.1) Spiritual evolution is an experience of the increasing and voluntary choice of goodness attended by an equal and progressive diminution of the possibility of evil. With the attainment of finality of choice for goodness and of completed capacity for truth appreciation, there comes into existence a perfection of beauty and holiness whose righteousness eternally inhibits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even the concept of potential evil. Such a God-knowing soul casts no shadow of doubting evil when functioning on such a high spirit level of divine goodness.

132:3.9 (1460.2)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spirit in the mind of man constitutes the revelation promise and the faith pledge of an eternal existence of divine progression for every soul seeking to achieve identity with this immortal and indwelling spirit fragment of the Universal Father.

132:3.10 (1460.3) Universe progress is characterized by increasing personality freedom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ve attainment of higher and higher levels of self-understanding and consequent voluntary self-restraint. The attainment of perfection of spiritual self-restraint equals completeness of universe freedom and personal liberty. Faith fosters and maintains man's soul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of his early orientation in such a vast universe, whereas prayer becomes the great unifier of the various inspirations of the creative imagination and the faith urges of a soul trying to identify itself with the spirit ideals of the indwelling and associated divine presence.

132:3.11 (1460.4) Nabon was greatly impressed by these words, as he was by each of his talks with Jesus. These truths continued to burn within his heart, and he was of great assistance to the later arriving preachers of Jesus' gospel.

4. PERSONAL MINISTRY

132:4.1 (1460.5) Jesus did not devote all his leisure while in Rome to this work of preparing men and women to become future disciples in the oncoming kingdom. He spent much time gaining an intimate knowledge of all races and classes of men who lived in this, the largest and most cosmopolitan city of the world. In each of these numerous human contacts Jesus had a double purpose: He desired to learn their reactions to the life they were living in the flesh, and he was also minded to say or do something to make that life richer and more worth while. His religious teachings during these weeks were no different than those which characterized his later life as teacher of the twelve and preacher to the multitudes.

그의 메시지의 요지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의 자비라는 진리와 함께, 사람은 이 동일한 사랑 넘치는 하느님의 신앙-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사회적 접촉에 있어서의 예수의 통상적 방식은, 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 이끌어 내어 자기와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대화는 흔히 예수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하였다. 그는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그는 가장 적게 말하였다.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과 걱정이 많고 낙심한 필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동정심이 많고 납득해 주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혼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많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인간 존재들이 예수에게 자신들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예수는 그들의 실제 어려움들을 앞으로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항상 해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평안과 당장의 위안이 되는 말을 해 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는 필사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소식을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전하곤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그 곳에 있는 거의 500명 이상의 필사자들과, 애정이 넘치고 정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얻지 못할 여러 다른 인종들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지상 일생 중에서 이 6개월의 기간을 가장 풍부하고 유익한 시기 중의 하나로 늘 간주하였다.

아마도 예측되는바와 같이, 그렇게 재능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어떤 사업이나 또는 더욱 빈번하게는,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투사, 사회 개혁, 아니면 종교적 운동과 관련하여 그의 사명활동을 확보 받고자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교섭을 받지 않는 채로, 6개월 동안이나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제의가 12번 이상 들어왔는데, 예수는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말에 의해서 또는 친절한 봉사를 통하여, 영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사상을 주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행하는 것—아주 작은 일이라도—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는 로마의 어떤 원로원 의원과 정치와 정치적 수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와의 이러한 번의 만남에 의하여 이 입법부 의원은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의 동료들로 하여금 정부가 국민을 후원하고 부양하는 개념으로부터 국민이 정부를 후원하는 관념으로 통치 제도의 방침을 바꾸도록 유도하려고 여생동안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

132:4.2 (1460.6) Always the burden of his message was: the fact of the heavenly Father's love and the truth of his mercy, coupled with the good news that man is a faith-son of this same God of love. Jesus' usual technique of social contact was to draw people out and into talking with him by asking them questions. The interview would usually begin by his asking them questions and end by their asking him questions. He was equally adept in teaching by either asking or answering questions. As a rule, to those he taught the most, he said the least. Those who derived most benefit from his personal ministry were overburdened, anxious, and dejected mortals who gained much relief because of the opportunity to unburden their souls to a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listener, and he was all that and more. And when these maladjusted human beings had told Jesus about their troubles, always was he able to offer practical and immediately helpful suggestions looking toward the correction of their real difficulties, albeit he did not neglect to speak words of present comfort and immediate consolation. And invariably would he tell these distressed mortals about the love of God and impart the information, by various and sundry methods, that they were the children of this loving Father in heaven.

132:4.3 (1461.1) In this manner, during the sojourn in Rome, Jesus personally came into affectionate and uplifting contact with upward of five hundred mortals of the realm. He thus gained a knowledge of the different races of mankind which he could never have acquired in Jerusalem and hardly even in Alexandria. He always regarded this six months as one of the richest and most informative of any like period of his earth life.

132:4.4 (1461.2) As might have been expected, such a versatile and aggressive man could not thus function for six months in the world's metropolis without being approached by numerous persons who desired to secure his services in connection with some business or, more often, for some project of teaching, social reform, or religious movement. More than a dozen such proffers were made, and he utilized each one as an opportunity for imparting some thought of spiritual ennoblement by well-chosen words or by some obliging service. Jesus was very fond of doing things — even little things — for all sorts of people.

132:4.5 (1461.3) He talked with a Roman senator on politics and statesmanship, and this one contact with Jesus made such an impression on this legislator that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vainly trying to induce his colleagues to change the course of the ruling policy from the idea of the government supporting and feeding the people to that of the people supporting the government.

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하루 저녁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클라우디오스라는 이 사람은 다음 날 117명의 자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저녁 식사시간에 어느 그리스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환자들이 육체 이외에도 마음과 혼을 갖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며, 그리하여 이 유능한 의사는 자기 이웃들에 대한 더욱 멀리-뻗치는 사명활동에 애를 쓰게 되었다. 그는 모든 계급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로마에서 그가 방문하지 않은 단 하나의 장소는 대중 목욕탕이었다. 난잡한 성(性) 행위가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로마의 병정에게는, 함께 티버 강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손뿐만 아니라 가슴도 용감해야 한다. 대담하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보이기에 충분한 만큼 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네가 상급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너의 낮은 본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본성에 복종하도록 굴복시켜야 한다. 선을 존경하고 진리를 드높여라. 추한 것들 대신에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라. 너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온 가슴을 다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손이 닿도록 하라. 이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공개토론회의 연사(演士)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웅변술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너의 논리는 감탄할 만하며, 네 음성은 듣기에 아름답지만, 너의 가르침은 진리와 너무 먼 것이다. 만일 네가, 너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아는 영감 어린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너는 너의 동료들을 어둠의 속박과 무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너의 연설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마커스였다.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복음 설교를 계속하였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누명을 쓴 한 가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는 그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서,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얻은 후에,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의가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질수록, 가장 미친한 시민에게까지 불공정이 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다. 단지 돈과 세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법정에서 공의를 베풀려고 하는 나라에는 재앙이 있리라! 죄지은 자를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관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정의 공명정대, 공정성, 그리고 고결한-순수성 위에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다. 진정한 종교가 자비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시민의 정부는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 재판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었으며, 증거를 면밀히 검사한 뒤에 죄수를 석방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예수의 개인적 사명활동 중에서, 이 사건이 대중적인 출현에 가장 가깝게 나온 것이었다.

Jesus spent one evening with a wealthy slaveholder, talked about man as a son of God, and the next day this man, Claudius, gave freedom to one hundred and seventeen slaves. He visited at dinner with a Greek physician, telling him that his patients had minds and souls as well as bodies, and thus led this able doctor to attempt a more far-reaching ministry to his fellow men. He talked with all sorts of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The only place in Rome he did not visit was the public baths. He refused to accompany his friends to the baths because of the sex promiscuity which there prevailed.

132:4.6 (1461.4) To a Roman soldier, as they walked along the Tiber, he said: “Be brave of heart as well as of hand. Dare to do justice and be big enough to show mercy. Compel your lower nature to obey your higher nature as you obey your superiors. Revere goodness and exalt truth. Choose the beautiful in place of the ugly. Love your fellows and reach out for God with a whole heart, for God is your Father in heaven.”

132:4.7 (1461.5) To the speaker at the forum he said: “Your eloquence is pleasing, your logic is admirable, your voice is pleasant, but your teaching is hardly true. If you could only enjoy the inspiring satisfaction of knowing God as your spiritual Father, then you might employ your powers of speech to liberate your fellows from the bondage of darkness and from the slavery of ignorance.” This was the Marcus who heard Peter preach in Rome and became his successor. When they crucified Simon Peter, it was this man who defied the Roman persecutors and boldly continued to preach the new gospel.

132:4.8 (1462.1) Meeting a poor man who had been falsely accused, Jesus went with him before the magistrate and, having been granted special permission to appear in his behalf, made that superb address in the course of which he said: “Justice makes a nation great, and the greater a nation the more solicitous will it be to see that injustice shall not befall even its most humble citizen. Woe upon any nation when only those who possess money and influence can secure ready justice before its courts! It is the sacred duty of a magistrate to acquit the innocent as well as to punish the guilty. Upon the impartiality, fairness, and integrity of its courts the endurance of a nation depends. Civil government is founded on justice, even as true religion is founded on mercy.” The judge reopened the case, and when the evidence had been sifted, he discharged the prisoner. Of all Jesus’ activities during these days of personal ministry, this came the nearest to being a public appearance.

제 5 장. 부자에게 준 조언

금욕주의자이며 로마시민인 어떤 부자가, 앙가몬의 소개를 받고, 예수와 가르침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번의 친숙한 만남이 있은 후, 이 부자는 예수에게 그가 만일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하겠느냐고 물었으며,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영적 봉사를 지적 일생의 풍요나 사회생활의 고상함이나 또는 영적 일생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물질적 재산은 물질적 일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음 세대와 그 이후에 계속되는 후손들의 이익과 고상함을 위하여 쓰일 자원을 책임진, 한 세대의 현명하고 효력적인 신탁인의 자격으로서 재산들을 관리-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예수의 대답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의무에 대한 진리를 그가 실제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예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대답하였다: “나의 선한 친구여, 네가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는 자이며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재물에 대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나의 조언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이 충고를 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른 부자들의 재물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너에게, 그리고 너의 개인적 지침이 되도록 충고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진정으로 너의 재물을 하나의 신탁물로 여기기 원한다면, 네가 그 축적된 재물에 대하여 현명하고도 유능한 청지기가 되기를 실제로 원한다면, 너의 부(富)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함으로써 너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이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네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 정직한 대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해라. 너의 많은 재산의 출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물질적 재산 축적에 대한 열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상속된 재산—부모나 다른 조상들로부터의 부(富).

2. 발견되어진 재산—본래의 땅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의 부.

3. 거래에 의해 얻은 재산—물질적 상품의 물물교환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얻어진 부.

4. 부당한 재산—부당한 착취나 혹은 자신의 동료를 노예화함으로써 얻어진 부.

5. 금리로 얻은 재산—투자한 자본의 공정하

5. COUNSELING THE RICH MAN

132:5.1 (1462.2) A certain rich man, a Roman citizen and a Stoic,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Jesus' teaching, having been introduced by Angamon. After many intimate conferences this wealthy citizen asked Jesus what he would do with wealth if he had it, and Jesus answered him: "I would bestow material wealth for the enhancement of material life, even as I would minister knowledge, wisdom, and spiritual service for the enrichment of the intellectual life, the ennoblement of the social life, and the advancement of the spiritual life. I would administer material wealth as a wise and effective trustee of the resources of one generation for the benefit and ennoblement of the next and succeeding generations."

132:5.2 (1462.3) But the rich man was not fully satisfied with Jesus' answer. He made bold to ask again: "But what do you think a man in my position should do with his wealth? Should I keep it, or should I give it away?" And when Jesus perceived that he really desired to know more of the truth about his loyalty to God and his duty to men, he further answered: "My good friend, I discern that you are a sincere seeker after wisdom and an honest lover of truth; therefore am I minded to lay before you my view of the solution of your problems having to do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wealth. I do this because you have asked for my counsel, and in giving you this advice, I am not concerned with the wealth of any other rich man; I am offering advice only to you and for your personal guidance. If you honestly desire to regard your wealth as a trust, if you really wish to become a wise and efficient steward of your accumulated wealth, then would I counsel you to make the following analysis of the sources of your riches: Ask yourself, and do your best to find the honest answer, whence came this wealth? And as a help in the study of the sources of your great fortune, I would suggest that you bear in mind the following ten different methods of amassing material wealth:

132:5.3 (1462.4) "1. Inherited wealth — riches derived from parents and other ancestors.

132:5.4 (1462.5) "2. Discovered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uncultivated resources of mother earth.

132:5.5 (1462.6) "3. Trade wealth — riches obtained as a fair profit in the exchange and barter of material goods.

132:5.6 (1462.7) "4. Unfair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unfair exploitation or the enslavement of one's fellows.

132:5.7 (1463.1) "5. Interest wealth — income derived

고 정당한 수익 가능성으로부터의 수입.

6. 천재적 재능으로 얻은 재산—인간 마음에서의 천재적으로 창조적이고 발명적인 부여된-자질의 보상으로 얻은 부.

7. 우연히 얻은 재산—자신의 동료의 관대함으로 부터나 혹은 일생의 환경에서 온 부(富).

8. 훔친 재산—부당함, 부정직, 도둑질, 혹은 사기에 의한 부.

9. 신탁된 기금—현재나 혹은 미래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용을 위해 네 이웃들로부터 너에게 맡겨진 재산.

10 벌어서 모은 재산—네 자신의 노동, 마음과 육체를 사용하여 네가 직접 매일 수고한 것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부.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네가 만일 너의 많은 재산에 대한 신실하고 의로운 청지기라면,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함에 있어서, 재산을 대략 이러한 열 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각각의 몫을 공의, 공평, 공정성,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법들의 현명하고 정직한 판단에 따라서 계속 관리-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네가 가끔 확실치 않은 상황들에 처하여, 필사자 일생의 불행한 환경 아래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괴로움을 도와주며 자비롭고 사심-없는 배려를 하는 중에서 실수를 범한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질적 상황의 공평함과 공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궁핍한자에게 유리하고 불행으로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시간을 토의한 후에, 그 부자는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을 간청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자신의 충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재산에 대한 너의 태도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제안함에 있어서, 나의 조언을 단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네 개인적 지침으로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오직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질문하는 친구에 대한 답변으로 말할 뿐이다. 다른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네가 명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1. 상속되어진 재산의 청지기로서 너는 그것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너는 정당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대의 이득을 위한 공정한 몫을 제한 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는 일에 있어서, 과거의 세대들을 대표하는 도덕적 의무 아래에 있다. 그러나 네 조상들에 의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에 내포된 어떤 부정직함이나 불공정이든지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 사기나 부당함에서 얻어 유되었다고 밝혀진, 너에게 상속된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너는 공의와 관대함 그리고 배상에

from the fair and just earning possibilities of invested capital.

132:5.8 (1463.2) “6. Genius wealth — riches accruing from the rewards of the creative and inventive endowments of the human mind.

132:5.9 (1463.3) “7. Accidental wealth — riches derived from the generosity of one’s fellows or taking origin in the circumstances of life.

132:5.10 (1463.4) “8. Stolen wealth — riches secured by unfairness, dishonesty, theft, or fraud.

132:5.11 (1463.5) “9. Trust funds — wealth lodged in your hands by your fellows for some specific use, now or in the future.

132:5.12 (1463.6) “10. Earned wealth — riches derived directly from your own personal labor, the fair and just reward of your own daily efforts of mind and body.

132:5.13 (1463.7) “And so, my friend, if you would be a faithful and just steward of your large fortune, before God and in service to men, you must approximately divide your wealth into these ten grand divisions, and then proceed to administer each 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wise and honest interpretation of the laws of justice, equity, fairness, and true efficiency; albeit, the God of heaven would not condemn you if sometimes you erred, in doubtful situations, on the side of merciful and unselfish regard for the distress of the suffering victims of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mortal life. When in honest doubt about the equity and justice of material situations, let your decisions favor those who are in need, favor those who suffer the misfortune of undeserved hardships.”

132:5.14 (1463.8) After discussing these matters for several hours and in response to the rich man’s request for further and more detailed instruction, Jesus went on to amplify his advice, in substance saying: “While I offer further suggestions concerning your attitude toward wealth, I would admonish you to receive my counsel as given only to you and for your personal guidance. I speak only for myself and to you as an inquiring friend. I adjure you not to become a dictator as to how other rich men shall regard their wealth. I would advise you:

132:5.15 (1463.9) “1. As steward of inherited wealth you should consider its sources. You are under moral obligation to represent the past generation in the honest transmittal of legitimate wealth to succeeding generations after subtracting a fair toll for the benefit of the present generation. But you are not obligated to perpetuate any dishonesty or injustice involved in the unfair accumulation of wealth by your ancestors. Any portion of your inherited wealth which turns out to have been

대한 네 신념에 의거하여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하게 상속된 너의 나머지 재산은 네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신탁자로서 안전하게 전해야 한다. 네 후손들에게 재물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현명한 식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이 네 의사 결정들을 좌우해야 할 것이다.

“2. 발견에 의한 결과로 재산을 얻은 모든 사람은, 한 개별존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뿐임을 기억해야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러한 발견들을 그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발견한 자의 수고의 대가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자연의 숨겨진 보물의 자원으로부터 유래한 모든 이익들과 축복들을 자신만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3. 사람들이 상업과 물물 교환으로 세상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한, 그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소매상인들은 자신의 봉사에 대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역업자는 그를 고용할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의 조직화된 상업에 있어서 정당한 무역과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익금을 창출한다; 이러한 모든 재산의 근원들은 공의와 정직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원칙들에 의해 판별되어야 한다. 정직한 무역업자는,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동료 무역업자들과 기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똑같은 이익을 남기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업 거래들이 대규모로 수행되고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재산이 개별적으로는 똑같은 소득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직하게 축적된 재산은 소유자에게 뒤이어 일어나는 분배에서 상당한 지분을 자질로서 부여한다..

“4. 하느님을 알고 신성한 의지를 행하기를 원하는 필사자라면, 누구든지 억압에 의한 재산 착취에 가담하지 못할 것이다. 숭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노예화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함으로써 부(富)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힘을 모으려고 분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억압된 필사자들의 땀으로부터 얻어졌을 때, 부(富)는 도덕적 저주와 영적 오점이 된다. 그러한 모든 재산은, 그런 식으로 빼앗긴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문명은, 고용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실천 관행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다.

“5. 정당한 재산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한, 빌려준 자본이 합법적인 재산이라면 공정한 이자를 거둘 수가 있다. 이자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자본을 깨끗하게 하라. 고리대금의 실천 관행에 굴복할 정도까지 너무 비열하고 탐욕스럽게 되지

derived through fraud or unfairness, you may disburse in accordance with your convictions of justice, generosity, and restitution. The remainder of your legitimate inherited wealth you may use in equity and transmit in security as the trustee of one generation for another. Wise discrimination and sound judgment should dictate your decisions regarding the bequest of riches to your successors.

132:5.16 (1463.10) “2. Everyone who enjoys wealth as a result of discovery should remember that one individual can live on earth but a short season and should, therefore, make adequate provision for the sharing of these discoveries in helpful ways by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his fellow men. While the discoverer should not be denied all reward for efforts of discovery, neither should he selfishly presume to lay claim to all of the advantages and blessings to be derived from the uncovering of nature's hoarded resources.

132:5.17 (1464.1) “3. As long as men choose to conduct the world's business by trade and barter, they are entitled to a fair and legitimate profit. Every tradesman deserves wages for his services; the merchant is entitled to his hire. The fairness of trade and the honest treatment accorded one's fellows in the organized business of the world create many different sorts of profit wealth, and all these sources of wealth must be judged by the highest principles of justice, honesty, and fairness. The honest trader should not hesitate to take the same profit which he would gladly accord his fellow trader in a similar transaction. While this sort of wealth is not identical with individually earned income when business dealings are conducted on a large scale, at the same time, such honestly accumulated wealth endows its possessor with a considerable equity as regards a voice in its subsequent distribution.

132:5.18 (1464.2) “4. No mortal who knows God and seeks to do the divine will can stoop to engage in the oppressions of wealth. No noble man will strive to accumulate riches and amass wealth-power by the enslavement or unfair exploitation of his brothers in the flesh. Riches are a moral curse and a spiritual stigma when they are derived from the sweat of oppressed mortal man. All such wealth should be restored to those who have thus been robbed or to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An enduring civilization cannot be built upon the practice of defrauding the laborer of his hire.

132:5.19 (1464.3) “5. Honest wealth is entitled to interest. As long as men borrow and lend, that which is fair interest may be collected provided the capital lent was legitimate wealth. First cleanse your capital before you lay claim to the interest. Do not become so small and grasping that you would

마라. 돈의 힘을 이용하여, 너의 분투하는 동료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그 같은 이기적이 되려는데, 네 자신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 압도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네 형제로부터 고리대금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6. 만일 네가 우수한 천부적 재능에 의해 우연히 재산을 얻었다면, 만일 발명하는 자질에 대한 보상으로 너의 재산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보상에 대해 부당한 몫을 주장하지 마라. 비범한 자질은 그의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 둘 모두에게 어느 정도 빛을 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는 인류, 국가, 그리고 자신의 독창적인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환경들에게도 의무가 있다; 자기가 수고하여 발명한 것도,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룩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비범한 재능을 박탈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에서 이들에 관한 모든 문제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들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너는 먼저 사람들이 네 형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네 의도대로 상대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너도 그의 의도대로 그에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공의, 정직, 공정이라는 평범한 양심의 지시가 경제적인 보상들과 사회정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빠르고 치우치지 않도록, 너를 안내해줄 것이다.

“7. 관리-행정을 통해서 획득한 바르고 정당한 보수를 제외하고, 시간과 기회로 인해서 자기 손안에 떨어진 재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개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얻은 재산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쓰이기 위한 신탁물이라는 입장에서 간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재산의 소유자들은, 노력 없이 얻은 그러한 자원에 대한 현명하고 효과적인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교양이 높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이며 사적(私的)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8. 만일 네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기 행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일 네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부정직한 실천 관행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해서 축적된 것이라면; 만일 네 재산이 네 이웃들과의 부당한 거래에 의한 산물이라면, 잘못 얻어진 이러한 모든 소득 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주인들에게 서둘러서 반환해라.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너의 모든 부정직한 재산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9.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그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일은 하나의 중대하고 신성한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신용에 해를 입히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정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量)만을 그 신탁금에서 네 몫으로 떼어놓아라.

“10. 너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으로 얻은 네 재산은—만약 그 일이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된 것이었다면—, 진정한 네 소유이다. 그러한 재산을 간직하고 사용하는 너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stoop to the practice of usury. Never permit yourself to be so selfish as to employ money-power to gain unfair advantage over your struggling fellows. Yield not to the temptation to take usury from your brother in financial distress.

132:5.20 (1464.4) “6. If you chance to secure wealth by flights of genius, if your riches are derived from the rewards of inventive endowment, do not lay claim to an unfair portion of such rewards. The genius owes something to both his ancestors and his progeny; likewise is he under obligation to the race, nation, and circumstances of his inventive discoveries; he should also remember that it was as man among men that he labored and wrought out his inventions. It would be equally unjust to deprive the genius of all his increment of wealth. And it will ever be impossible for men to establish rul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equally to all these problems of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You must first recognize man as your brother, and if you honestly desire to do by him as you would have him do by you, the commonplace dictates of justice, honesty, and fairness will guide you in the just and impartial settlement of every recurring problem of economic rewards and social justice.

132:5.21 (1464.5) “7. Except for the just and legitimate fees earned in administration, no man should lay personal claim to that wealth which time and chance may cause to fall into his hands. Accidental riches should be regarded somewhat in the light of a trust to be expended for the benefit of one's social or economic group. The possessors of such wealth should be accorded the major voic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wis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such unearned resources. Civilized man will not always look upon all that he controls as his personal and private possession.

132:5.22 (1465.1) “8. If any portion of your fortune has been knowingly derived from fraud; if aught of your wealth has been accumulated by dishonest practices or unfair methods; if your riches are the product of unjust dealings with your fellows, make haste to restore all these ill-gotten gains to the rightful owners. Make full amends and thus cleanse your fortune of all dishonest riches.

132:5.23 (1465.2) “9. The trusteeship of the wealth of one person for the benefit of others is a solemn and sacred responsibility. Do not hazard or jeopardize such a trust. Take for yourself of any trust only that which all honest men would allow.

132:5.24 (1465.3) “10. That part of your fortune which represents the earnings of your own mental and physical efforts — if your work has been done in fairness and equity — is truly your own. No man can gainsay your right to hold and use such wealth

내가 보기에 그것이 네 이웃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예수가 그에게 조언을 마치자, 이 부유한 로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약속하였다: “나의 선한 친구여, 나는 당신이 위대한 지혜와 선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내일부터 당신의 조언에 따라 나의 모든 재산의 관리-행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as you may see fit provided your exercise of this right does not work harm upon your fellows.”

132:5.25 (1465.4) When Jesus had finished counseling him, this wealthy Roman arose from his couch and, in saying farewell for the night, delivered himself of this promise: “My good friend, I perceive you are a man of great wisdom and goodness, and tomorrow I will begin the administration of all my wealth in accordance with your counsel.”

제 6 장. 사회적인 사명활동

6. SOCIAL MINISTRY

이곳 로마에서, 한 우주의 창조자가, 길 잃은 아이를 초조해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되찾아 주느라고 몇 시간을 보낸 감동적인 사건이 또한 발생했다. 이 어린 소년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했었고, 집에 질려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가 발견하였다. 그와 가니드는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지만, 그 아이의 집을 찾아 주는 일에 헌신하였다. 가니드는 예수가 하였던 다음과 같은 말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가니드야, 대부분의 인간 존재들은 길을 잃은 아이와 같다. 사람들은 진실로, 안전과 안심으로부터 단지 짧은 거리에 있음에도, 두려움에 울고 슬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집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알고 또한 하느님을 아는 확신을 즐기는 모든 자들은,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안내를 제공해 주려고, 의무가 아닌 하나의 특권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극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하느님에게 인도하는 자들은, 인간 봉사의 최극 만족을 체험한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가니드는 그의 자연적 일생의 남은 기간 동안, 길 잃은 아이를 그들의 집에 되찾아 줄까 하여,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보았다.

남편을 사고로 사별한 후, 다섯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던 일에 대하여 가니드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은 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갔으며, 한편으로 가니드는 음식과 옷을 제공하려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구하였다. 그들은 가장 나이든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로써 그가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까지 그러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

그 날 밤, 고노드는 이러한 체험들에 관해서 설명을 듣다가, 예수에게 부드럽게 말하였다: “나는 내 아들을 학자나 사업가로 키우려고 하였는데,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철학자나 자선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러자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마 우리는 당신이 말한 그 네 가지 전부를 그가 성취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된다면, 그의 귀가 한 가지 음색 대신에 네 가지 음색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일생 속에서 네 곱절의 만족을 즐길 수 있을

132:6.1 (1465.5) Here in Rome also occurred that touching incident in which the Creator of a universe spent several hours restoring a lost child to his anxious mother. This little boy had wandered away from his home, and Jesus found him crying in distress. He and Ganid were on their way to the libraries, but they devoted themselves to getting the child back home. Ganid never forgot Jesus' comment: “You know, Ganid, most human beings are like the lost child. They spend much of their time crying in fear and suffering in sorrow when, in very truth, they are but a short distance from safety and security, even as this child was only a little way from home. And all those who know the way of truth and enjoy the assurance of knowing God should esteem it a privilege, not a duty, to offer guidance to their fellows in their efforts to find the satisfactions of living. Did we not supremely enjoy this ministry of restoring the child to his mother? So do those who lead men to God experience the supreme satisfaction of human service.” And from that day forward, for the remainder of his natural life, Ganid was continually on the lookout for lost children whom he might restore to their homes.

132:6.2 (1465.6) There was the widow with five children whose husband had been accidentally killed. Jesus told Ganid about the loss of his own father by an accident, and they went repeatedly to comfort this mother and her children, while Ganid sought money from his father to provide food and clothing. They did not cease their efforts until they had found a position for the eldest boy so that he could help in the care of the family.

132:6.3 (1465.7) That night, as Gonod listened to the recital of these experiences, he said to Jesus, good-naturedly: “I propose to make a scholar or a businessman of my son, and now you start out to make a philosopher or philanthropist of him.” And Jesus smilingly replied: “Perhaps we will make him all four; then can he enjoy a fourfold satisfaction in life as his ear for the recognition of human melody will be able to recognize four tones instead of one.” Then said Gonod: “I perceive that

것이요.” 그러자 고노드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실제로 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후손들을 위하여 책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책이 아니라, - 나의 사명은 이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나는-” 그러나 그는 말을 멈추면서 가니드에게, “에야, 이제 잘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였다.

제 7 장. 로마 근처를 여행함

예수와 고노드와 가니드는, 로마를 떠나 주변방의 지역들에 있는 흥미로운 곳들로, 다섯 차례의 여행을 하였다.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호수를 방문하였을 때, 사람이 하느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예수는 가니드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들은 경솔한 한 이방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평소 실천 관행과는 달리,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영적 질문들을 끌어내어 토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니드는 의아해 하였다. 가니드가 그의 선생에게 왜 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그 사람은 진리에 굶주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 그는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눈은 혼을 위한 빛을 받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저 사람은 구원의 수확을 위해 익지 않았다; 그가 지혜와 높은 깨달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를 준비시킬 생활의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만 한다.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 매료되어, 그도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부득이 우리에게 물어 오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를 계시할 수 없다; 원하지 않는 혼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는 체험의 결과로서, 진리에 대하여 굶주려야만 한다, 아니라면, 다른 인간 존재가 그러한 동료 필사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매개체로서 행동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신성한 아버지를 알고 지내는 저들의 삶과 친숙하게 된 결과에 따라서, 그가 하느님을 알기를 갈망하여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실제 사업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느님을 찾아나서는 모든 개인들이 아버지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을 찾아내는 하느님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찾아내는 것에서, 우리의 도움을 청할 것이다.”

예수가 그 아버지와 아들 모두와 함께 하루 종일 불교에 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스위스를 방문하였을 때 높은 산 위에서였다. 가니드는 예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을 했었지만, 그는 항상 다소 회피적인 태

you really are a philosopher. You must write a book for future generations.” And Jesus replied: “Not a book — my mission is to live a life in this generation and for all generations. I — “ but he stopped, saying to Ganid, “My son, it is time to retire.”

7. TRIPS ABOUT ROME

132:7.1 (1466.1) Jesus, Gonod, and Ganid made five trips away from Rome to points of interest in the surrounding territory. On their visit to the northern Italian lakes Jesus had the long talk with Ganid concerning the impossibility of teaching a man about God if the man does not desire to know God. They had casually met a thoughtless pagan while on their journey up to the lakes, and Ganid was surprised that Jesus did not follow out his usual practice of enlisting the man in conversation which would naturally lead up to the discussion of spiritual questions. When Ganid asked his teacher why he evinced so little interest in this pagan, Jesus answered:

132:7.2 (1466.2) “Ganid, the man was not hungry for truth. He was not dissatisfied with himself. He was not ready to ask for help, and the eyes of his mind were not open to receive light for the soul. That man was not ripe for the harvest of salvation; he must be allowed more time for the trials and difficulties of life to prepare him for the reception of wisdom and higher learning. Or, if we could have him live with us, we might by our lives show him the Father in heaven, and thus would he become so attracted by our lives as sons of God that he would be constrained to inquire about our Father. You cannot reveal God to those who do not seek for him; you cannot lead unwilling souls into the joys of salvation. Man must become hungry for truth as a result of the experiences of living, or he must desire to know God as the result of contact with the lives of those who are acquainted with the divine Father before another human being can act as the means of leading such a fellow mortal to the Father in heaven. If we know God, our real business on earth is so to live as to permit the Father to reveal himself in our lives, and thus will all God-seeking persons see the Father and ask for our help in finding out more about the God who in this manner finds expression in our lives.”

132:7.3 (1466.3) It was on the visit to Switzerland, up in the mountains, that Jesus had an all-day talk with both father and son about Buddhism. Many times Ganid had asked Jesus direct questions about Buddha, but he had always received more

답을 받아들이 수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의 현존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그는 바로 대답을 듣게 되었다. 고노드가, “저는 당신이 실제로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부처는 당신들의 불교보다 훨씬 뛰어나셨소. 부처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 민족에게 선지자였지만, 그는 고아(孤兒) 선지자였소; 내 말은, 그가 일찍이 그의 영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오. 그의 체험은 비극이었소. 그는 하느님의 메신저처럼 살고자 그리고 가르치고자 시도했지만, 그러나 하느님 없이 그렇게 하였소. 부처는 그의 구원의 배를 필사자 구원의 피난처의 입구 바로 앞까지, 안전한 항구의 바로 앞까지 인도하였으나, 바로 그곳에서 잘못된 항해 해도 때문에, 그 선한 배는 땅 위로 올라가 버렸소. 그것은 거기서 이들 여러 세대 동안 움직임이 없이, 그리고 거의 희망도 없이 좌초되어 쉬고 있소. 그리고 당신 민족의 많은 이들이 이들 세월 내내 그 위에서 머물러 왔던 것이오. 그들은 휴식의 안전한 바다에서 소리치면 들릴만한 가까운 거리 내에 있지만, 그러나 선한 부처의 고귀한 배가 항구 바로 바깥에서 땅에 닿는 불행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소.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 선지자의 철학적 배를 포기하고 그의 고귀한 영을 포착하지 않는 한, 이 항구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민족이 부처의 영에 참으로 머물고 있었다라면, 당신들은 영 평온, 혼 휴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당신들의 피난처에 오래 전에 들어왔었을 것이오.

“고노드여, 부처가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알았지만, 마음속에서 그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서는 하느님을 발견하였지만, 영적으로 그를 아는 데에는 크게 실패하였소. 오늘날, 불교신자들은 하느님이 없는 철학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고, 반면에 나의 민족들은 가련하게도 생명과 해방의 구원이 되는 철학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소. 당신들은 하느님 없는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삶의 철학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오. 마음속에 하느님을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한 부처는,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의 종교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만약에 종교가 인류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를 높여주는 것이라면—도덕적 에너지와 영적으로 연유되는 힘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소.”

그러자 가니드가 이렇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 인도를 위해 충분히 훌륭하고 로마를 위해서도 충분히 거창한 것을 만들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종교를 야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종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며, 반면에 하느님의 계시는, 하느님을 자기 동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

or less evasive replies. Now, in the presence of the son, the father asked Jesus a direct question about Buddha, and he received a direct reply. Said Gonod: “I would really like to know what you think of Buddha.” And Jesus answered:

132:7.4 (1466.4) “Your Buddha was much better than your Buddhism. Buddha was a great man, even a prophet to his people, but he was an orphan prophet; by that I mean that he early lost sight of his spiritual Father, the Father in heaven. His experience was tragic. He tried to live and teach as a messenger of God, but without God. Buddha guided his ship of salvation right up to the safe harbor, right up to the entrance to the haven of mortal salvation, and there, because of faulty charts of navigation, the good ship ran aground. There it has rested these many generations, motionless and almost hopelessly stranded. And thereon have many of your people remained all these years. They live within hailing distance of the safe waters of rest, but they refuse to enter because the noble craft of the good Buddha met the misfortune of grounding just outside the harbor. And the Buddhist peoples never will enter this harbor unless they abandon the philosophic craft of their prophet and seize upon his noble spirit. Had your people remained true to the spirit of Buddha, you would have long since entered your haven of spirit tranquillity, soul rest, and assurance of salvation.

132:7.5 (1467.1) “You see, Gonod, Buddha knew God in spirit but failed clearly to discover him in mind; the Jews discovered God in mind but largely failed to know him in spirit. Today, the Buddhists flounder about in a philosophy without God, while my people are piteously enslaved to the fear of a God without a saving philosophy of life and liberty. You have a philosophy without a God; the Jews have a God but are largely without a philosophy of living as related thereto. Buddha, failing to envision God as a spirit and as a Father, failed to provide in his teaching the moral energy and the spiritual driving power which a religion must possess if it is to change a race and exalt a nation.”

132:7.6 (1467.2) Then exclaimed Ganid: “Teacher, let’s you and I make a new religion, one good enough for India and big enough for Rome, and maybe we can trade it to the Jews for Yahweh.” And Jesus replied: “Ganid, religions are not made. The religions of men grow up over long periods of time, while the revelations of God flash upon earth in the lives of the men who reveal God to their fellows.” But they did not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se prophetic words.

언적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니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였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어떤 때는 여호수아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단지 졸음 섞인 말투로, “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있단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날 이후, 가니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의 종교를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예수의 편견 없는 마음과 공정함과 관대함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모든 토론들 속에서, 이 젊은이는 한 번도 분개심의 감정이거나 반목의 반응들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 인도인 청년이 우주의 창조자에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고 제의하는 광경은, 주시하고 있던 천상의 지능존재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한 구경거리였는지! 그리고 비록 이 젊은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새롭고 영속하는 종교—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를 그 때 그곳에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청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을,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는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 졌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적 가르침과 인도함에 의해 깨우쳐지고 반영되어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온 가슴으로 그리고 사심없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성스런 의지를 행하려는 필사자의 봉헌의 정도에 따라서 켈 수 있을 정도로 창조되어 간다.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동반자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일어나고 있다.

132:7.7 (1467.3) That night after they had retired, Ganid could not sleep. He talked a long time with his father and finally said, “You know, father, I sometimes think Joshua is a prophet.” And his father only sleepily replied, “My son, there are others — “

132:7.8 (1467.4) From this day, for the remainder of his natural life, Ganid continued to evolve a religion of his own. He was mightily moved in his own mind by Jesus’ broadmindedness, fairness, and tolerance. In all their discussions of philosophy and religion this youth never experienced feelings of resentment or reactions of antagonism.

132:7.9 (1467.5) What a scene for the celestial intelligences to behold, this spectacle of the Indian lad proposing to the Creator of a universe that they make a new religion! And though the young man did not know it, they were making a new and everlasting religion right then and there — this new way of salvation, the revelation of God to man through, and in, Jesus. That which the lad wanted most to do he was unconsciously actually doing. And it was, and is, ever thus. That which the enlightened and reflective human imagination of spiritual teaching and leading wholeheartedly and unselfishly wants to do and be, becomes measurably creative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mortal dedication to the divine doing of the Father’s will. When man goes in partnership with God, great things may, and do, happen.

제 133 편 로마에서 돌아옴

⇨ 132

유랜시아 책

13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3 편 로마에서 돌아옴

섹션

소개

제 1 장. 자비와 공의

제 2 장. 타렌툼에서 배를 탐

제 3 장. 고린도에서

제 4 장. 고린도에서의 개인적 일

제 5 장.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토의

제 6 장.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제 7 장. 키프러스에서의 체류—마음에 관한 강연

제 8 장. 안디옥에서

제 9 장. 메소포타미아에서

PAPER 133

THE RETURN FROM ROME

SECTIONS

Introduction

1. Mercy and Justice

2. Embarking at Tarentum

3. At Corinth

4. Personal Work in Corinth

5. At Athens — Discourse on Science

6. At Ephesus — Discourse on the Soul

7. The Sojourn at Cyprus — Discourse on Mind

8. At Antioch

9. In Mesopotamia

소개

로마를 떠나려는 준비를 마칠 때까지, 예수는 자기 친구들 중 아무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은 예고 없이 왔다가, 같은 방법으로 떠나갔다.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린 것은 1년이 거의 지나갔을 때였다. 이 두 번째 해가 다 가기 전에, 예수를 알고 지냈던 작은 집단의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그와 함께 지냈던 시절의 즐거웠던 서로의 기억들로 인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스토아학과, 권유학과, 신비 예배종파자들로 구성된 이 소규모의 집단은, 불규칙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러한 모임을, 그리스도교의 초기 설교자들이 로마에 오게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소유물을 수송 편으로 미리 타렌툼까지 보냈으며, 그 동안 세 여행자는 거대한 아피아 도로를 따라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한가하게 도보로 여행하였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인간들을 만났다.

INTRODUCTION

133:0.1 (1468.1) WHEN preparing to leave Rome, Jesus said good-bye to none of his friends. The scribe of Damascus appeared in Rome without announcement and disappeared in like manner. It was a full year before those who knew and loved him gave up hope of seeing him again.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year small groups of those who had known him found themselves drawn together by their common interest in his teachings and through mutual memory of their good times with him. And these small groups of Stoics, Cynics, and mystery cultists continued to hold these irregular and informal meetings right up to the time of the appearance in Rome of the first preachers of the Christian religion.

133:0.2 (1468.2) Gonod and Ganid had purchased so many things in Alexandria and Rome that they sent all their belongings on ahead by pack train to Tarentum, while the three travelers walked leisurely across Italy over the great Appian Way. On this journey they encountered all sorts of

많은 고귀한 로마 시민들과 식민지 주민인 그리스인들이 이 길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 비천한 노예들의 수많은 자손들도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타렌툼까지 가는 길의 중간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쉬는 동안, 가니드는 예수에게 인도의 카스트 계급제도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설적인 질문으로 물었다. 예수는 말했다: “비록 인간 존재들이 여러 길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서로 다르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는 모든 필사자가 동등한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오직 두 집단의 필사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의 뜻을 행하려고 갈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다. 우주가 생명체가 거주민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커다란 부류를 식별한다: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영역의 동물로 간주된다. 인류는 서로 다른 분별된-자격에 따라서,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도덕적으로 보이는 대로, 것처럼 많은 부류들로 적절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 다른 부류의 필사자들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은 동등한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다; 하느님은 참으로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비록 너희가 지적,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에서, 차별되는 인간 능력과 부여된-자질에서의 인지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경배를 위해 모였을 때에는,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만들면 안 된다.”

제 1 장. 자비와 공의

그들이 타렌툼에 가까이 당도한 어느 날 오후에 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난폭한 어느 소년이 자기보다 작은 한 아이를 괴롭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예수는 폭행을 당하는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달려갔으며, 그를 구해낸 후에는 그 아이가 충분히 멀리 도망갈 때까지 그 가해자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예수가 그 어린 깡패를 놓아주는 순간, 가니드가 그 소년에게 달려들어 그를 호되게 때려주기 시작하였으며, 예수가 즉시 가니드를 저지시키자 그는 매우 놀랐다. 가니드를 말리면서 겁먹은 그 소년을 도망가게 해주자, 그 젊은이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흥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저는 선생님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만 했다면, 그 아이보다 크고 공격적인 그 소년에게 벌을 주는 공의도 당연히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니드야, 네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자비의 사명활동은 항상 개별적인 일이지만, 공의에 의한 처벌은 사회나 정부 또는 우주의 관리-행정 집단들의 기능이다. 나는 한 개별존재로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고; 곤경에 처한 그 아이를 구해주어야만 하였으며, 가해자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모

human beings. Many noble Roman citizens and Greek colonists lived along this road, but already the progeny of great numbers of inferior slaves were beginning to make their appearance.

133:0.3 (1468.3) One day while resting at lunch, about halfway to Tarentum, Ganid asked Jesus a direct question as to what he thought of India's caste system. Said Jesus: “Though human beings differ in many ways, the one from another, before God and in the spiritual world all mortals stand on an equal footing. There are only two groups of mortals in the eyes of God: those who desire to do his will and those who do not. As the universe looks upon an inhabited world, it likewise discerns two great classes: those who know God and those who do not. Those who cannot know God are reckoned among the animals of any given realm. Mankind can appropriately be divided into many classes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qualifications, as they may be viewed physically, mentally, socially, vocationally, or morally, but as these different classes of mortals appear before the judgment bar of God, they stand on an equal footing; God is truly no respecter of persons. Although you cannot escape the recognition of differential human abilities and endowments in matters intellectual, social, and moral, you should make no such distinctions in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en when assembled for worship in the presence of God.”

1. MERCY AND JUSTICE

133:1.1 (1468.4) A very interesting incident occurred one afternoon by the roadside as they neared Tarentum. They observed a rough and bullying youth brutally attacking a smaller lad. Jesus hastened to the assistance of the assaulted youth, and when he had rescued him, he tightly held on to the offender until the smaller lad had made his escape. The moment Jesus released the little bully, Ganid pounced upon the boy and began soundly to thrash him, and to Ganid's astonishment Jesus promptly interfered. After he had restrained Ganid and permitted the frightened boy to escape, the young man, as soon as he got his breath, excitedly exclaimed: “I cannot understand you, Teacher. If mercy requires that you rescue the smaller lad, does not justice demand the punishment of the larger and offending youth?” In answering, Jesus said:

133:1.2 (1469.1) “Ganid, it is true, you do not understand. Mercy ministry is always the work of the individual, but justice punishment is the function of the social, governmental, or universe administrative groups. As an individual I am beholden to show mercy; I must go to the rescue of the assaulted lad, and in all consistency I may

순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방금 내가 행한 일이었다. 나는 곤경에 처한 그 아이의 해방을 성취하였고; 그것으로 나의 자비의 행위는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약한 자가 도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가해자를 힘으로 붙잡아 두었고, 그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나는 나아가 가해자를 판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그의 동기—자기 이웃을 공격하도록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에 대해 판결하고, 그런 후에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배상으로 내 마음이 지시했었을 처벌을 가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가니드야, 자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공의는 정확한 것이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조차도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공정한 형벌로, 한 사람은 40대의 매를, 다른 사람은 20대의 매를, 또 어떤 다른 이는 격리 감금을 부과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책임이 집단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그 집단이 뽑은 대표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우주에서는, 그것의 동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된 행동의 선행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존재들에게 심판이 맡겨져 있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와 잘 조직된 우주에서는, 공의의 실행은 정당한 심판에 의한 의로운 판결 결과의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권은 세상들의 사법집단과 모든 창조에 해당되는 높은 우주들의 전지(全知)한 관리·행정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자비를 현시하는 것과 공의를 실시하는 것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니드는 예수가 개인적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납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니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였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결코 받아들이 수가 없었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만약 힘이 더 세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선생님을 공격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예수)는 그의 질문에 충만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니드야,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너를 무척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며,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우선, 나의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하느님의 아들—육신 속에 있는 나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것이며, 만약 그가 도덕적 판단과 영적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주저 없이 가해자에게 발생될 결과에 상관없이, 내 온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방어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관계를 이룩한 지위에 있는 이웃

employ sufficient force to restrain the aggressor. And that is just what I did. I achieved the deliverance of the assaulted lad; that was the end of mercy ministry. Then I forcibly detained the aggressor a sufficient length of time to enable the weaker party to the dispute to make his escape, after which I withdrew from the affair. I did not proceed to sit in judgment on the aggressor, thus to pass upon his motive — to adjudicate all that entered into his attack upon his fellow — and then undertake to execute the punishment which my mind might dictate as just recompense for his wrongdoing. Ganid, mercy may be lavish, but justice is precise. Cannot you discern that no two persons are likely to agree as to the punishment which would 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One would impose forty lashes, another twenty, while still another would advise solitary confinement as a just punishment. Can you not see that on this world such responsibilities had better rest upon the group or be administered by chosen representatives of the group? In the universe, judgment is vested in those who fully know the antecedents of all wrongdoing as well as its motivation. In civilized society and in an organized universe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presupposes the passing of just sentence consequent upon fair judgment, and such prerogatives are vested in the juridical groups of the worlds and in the all-knowing administrators of the higher universes of all creation.”

133:1.3 (1469.2) For days they talked about this problem of manifesting mercy and administering justice. And Ganid, at least to some extent, understood why Jesus would not engage in personal combat. But Ganid asked one last question, to which he never received a fully satisfactory answer; and that question was: “But, Teacher, if a stronger and ill-tempered creature should attack you and threaten to destroy you, what would you do? Would you make no effort to defend yourself?” Although Jesus could not fully and satisfactorily answer the lad’s question, inasmuch as he was not willing to disclose to him that he (Jesus) was living on earth as the exemplification of the Paradise Father’s love to an onlooking universe, he did say this much:

133:1.4 (1469.3) “Ganid, I can well understand how some of these problems perplex you, and I will endeavor to answer your question. First, in all attacks which might be made upon my person, I woul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ggressor was a son of God — my brother in the flesh — and if I thought such a creature did not possess moral judgment and spiritual reason, I would unhesitatingly defend myself to the full capacity of my powers of resistance, regardless of consequences to the attacker. But I would not thus

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향한 그의 폭행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미리 그에게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지시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니드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배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헌신하였다. 진정한 해(害)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를 배척하는 자들이 나에게 가하려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든지 내 일생의 사명이 실제로 위태로워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두려워할 만한 어떤 폭행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나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나는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확신을 가지고, 만능의 이 진리를 믿고자 한다.”

그러나 가니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예수는 그에게 자신의 소년시절의 체험들과 석공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었다. 야고보가 예수를 방어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니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선생님과 같은 친절한 사람을 공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어떤 이가 생각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선생님이 언제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재빨리 도와줄 어떤 필사자가 틀림없이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선생님, 가슴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머릿속으로는, 제가 만약 야고보였다면, 선생님이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끼로 공격했다고 여겨지는 무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저는 매우 즐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곤경에 빠진 친구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제공하시기 때문에—선생님에게는 언제든지 방어해 줄 어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므로—, 선생님의 삶의 여정이 상당히 안전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니드야, 그 시험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그 때가 이르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자아-방어와 무저항에 관한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하여 이 소년이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그는 다른 기회를 포착하여, 조직된 사회는 올바른 권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예수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제 2 장. 타렌툼에서 배를 탐

배에서 화물을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선착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여행자들은 한 남자가 그의 부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예수는, 그의 습관대로, 공격에 놓여있는 개인을 대신 도우려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는 성난 남편 뒤로 걸음을 옮겨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툑

assault a fellow man of sonship status, even in self-defense. That is, I would not punish him in advance and without judgment for his assault upon me. I would by every possible artifice seek to prevent and dissuade him from making such an attack and to mitigate it in case of my failure to abort it. Ganid, I have absolute confidence in my heavenly Father's overcare; I am consecrated to doing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 do not believe that real harm can befall me; I do not believe that my lifework can really be jeopardized by anything my enemies might wish to visit upon me, and surely we have no violence to fear from our friends. I am absolutely assured that the entire universe is friendly to me — this all-powerful truth I insist on believing with a wholehearted trust in spite of all appearances to the contrary.”

133:1.5 (1470.1) But Ganid was not fully satisfied. Many times they talked over these matters, and Jesus told him some of his boyhood experiences and also about Jacob the stone mason's son. On learning how Jacob appointed himself to defend Jesus, Ganid said: “Oh, I begin to see! In the first place very seldom would any normal human being want to attack such a kindly person as you, and even if anyone should be so unthinking as to do such a thing, there is pretty sure to be near at hand some other mortal who will fly to your assistance, even as you always go to the rescue of any person you observe to be in distress. In my heart, Teacher, I agree with you, but in my head I still think that if I had been Jacob, I would have enjoyed punishing those rude fellows who presumed to attack you just because they thought you would not defend yourself. I presume you are fairly safe in your journey through life since you spend much of your time helping others and ministering to your fellows in distress — well, most likely there'll always be someone on hand to defend you.” And Jesus replied: “That test has not yet come, Ganid, and when it does, we will have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And that was about all the lad could get his teacher to say on this difficult subject of self-defense and nonresistance. On another occasion he did draw from Jesus the opinion that organized society had every right to employ force in the execution of its just mandates.

2. EMBARKING AT TARENTUM

133:2.1 (1470.2) While tarrying at the ship landing, waiting for the boat to unload cargo, the travelers observed a man mistreating his wife. As was his custom, Jesus intervened in behalf of the person subjected to attack. He stepped up behind the irate husband and, tapping him gently on the shoulder, said: “My friend, may I speak with you in private for

특 두드러며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과 잠깐만 사적으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분노한 남자는 그러한 접근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잠시 당황하면서 주저하던 순간이 지나자,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왜요—그렇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는 그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여기는 바로는, 뭔가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힘센 남자가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를, 더구나 이곳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공격하도록 그를 이끈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내게 말해주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틀림없이 어떤 선한 이유를 가졌기에, 이러한 폭행을 일으킬만한 감정을 당신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할만큼, 무슨 일을 여인이 한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보면서 나는 당신 얼굴에서, 자비를 보이려는 열망이 아니라면, 공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식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말하건대, 당신이 만약 길가에서 강도들에게 공격 당하는 나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주저없이 나를 구조하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일생의 여정에서 그러한 용감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자, 친구여, 무엇이 문제인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여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어리석게도 이성을 잃고 생각 없이 그녀에게 폭행을 했나요?” 이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킨 것은, 예수가 말했던 그 많은 말보다는, 그의 발언의 결론에서 예수가 그에게 베풀어 내려준 친절함의 표정과 동정 어린 미소였다. 그 사람은 말했다: “내가 여기는 바로는, 당신은 견유학파의 사제이시군요, 그리고 나를 자제시켜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 아내가 큰 잘못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선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 나를 나무라는 태도로 내 화를 돋우고, 그래서 제가 성질을 참지 못합니다. 저의 자아-통제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저에게 더 나은 길을 가르쳐준 당신의 형제들 중의 한 분에게 제가 전에 했던 맹세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애쓸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여자가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한,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그 어떤 정당한 권한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과 함께 하는 일생을 통하여 두루 나아가며, 당신이 그 전투에서 싸우는데 도움을 주며,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무거운 짐의 훨씬 많은 몫을 떠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종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남자가 자기 아이들을 잉태하고, 낳고, 길러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여인에게 남자로서 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당신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공정한 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꺼이 증여하는 사랑이 넘치는 보살핌과 배려는, 남자가 창조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아-의식의 더욱 높은 차원에 달성한 것을 재는 척도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불멸 혼의 잠재를 자신 안에 소유하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들을 창조하려고

a moment?” The angry man was nonplused by such an approach and, after a moment of embarrassing hesitation, stammered out — “er — why — yes, what do you want with me?” When Jesus had led him to one side, he said: “My friend, I perceive that something terrible must have happened to you; I very much desire that you tell me what could happen to such a strong man to lead him to attack his wife, the mother of his children, and that right out here before all eyes. I am sure you must feel that you have some good reason for this assault. What did the woman do to deserve such treatment from her husband? As I look upon you, I think I discern in your face the love of justice if not the desire to show mercy. I venture to say that, if you found me out by the wayside, attacked by robbers, you would unhesitatingly rush to my rescue. I dare say you have done many such brave things in the course of your life. Now, my friend, tell me what is the matter? Did the woman do something wrong, or did you foolishly lose your head and thoughtlessly assault her?” It was not so much what he said that touched this man’s heart as the kindly look and the sympathetic smile which Jesus bestowed upon him at the conclusion of his remarks. Said the man: “I perceive you are a priest of the Cynics, and I am thankful you restrained me. My wife has done no great wrong; she is a good woman, but she irritates me by the manner in which she picks on me in public, and I lose my temper. I am sorry for my lack of self-control, and I promise to try to live up to my former pledge to one of your brothers who taught me the better way many years ago. I promise you.”

133:2.2 (1471.1) And then, in bidding him farewell, Jesus said: “My brother, always remember that man has no rightful authority over woman unless the woman has willingly and voluntarily given him such authority. Your wife has engaged to go through life with you, to help you fight its battles, and to assume the far greater share of the burden of bearing and rearing your children; and in return for this special service it is only fair that she receive from you that special protection which man can give to woman as the partner who must carry, bear, and nurture the children. The loving care and consideration which a man is willing to bestow upon his wife and their children are the measure of that man’s attainment of the higher levels of creative and spiritual self-consciousness. Do you not know that men and women are partners with God in that they co-operate to create beings who grow up to possess themselves of the

그들이 협력함에 있어서, 하느님과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의 자녀들의 영 어머니를 그 자신과 동등한 분으로 대우합니다. 당신 자녀들의 삶 안에서, 당신 자신들을 재생산하는 신성한 체험을 할만큼 당신과 충분히 공유하는 그러한 어머니 동반자와, 당신의 일생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과-같은 입니다. 만약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듯이,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광대한 우주의 모든 영 자녀의 어머니, 무한한 영을 영예롭게 하고 드높이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기 위하여 가면서, 말없이 포옹하며 서 있는, 눈물을-글썽이는 부부의 광경을 뒤돌아 보았다. 그 사람에게 하였던 예수 of 메시지 중에서 후반 부분을 듣고, 고노드는 하루 종일 명상에 잠겼고, 인도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을 재조직하기로 다짐하였다.

니코폴리스로의 여정은 순탄하였지만, 바람의 방향이 좋지 않아 속도가 느렸다. 세 사람은 로마에서의 그들의 체험들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처음 만난 이래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였다. 가니드에게 개인적 사명활동의 영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배의 항해사 일을 시작하였지만, 둘째 날에, 깊은 종교적 바다에 빠지자, 자기를 도와달라며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들은 니코폴리스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으며, 그 도시는 아우구스투스가 50년 전에 악티움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승리의 도시”로 세운 곳이었으며, 그가 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집단을 이끌고 야영을 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배에서 만나게 된 그리스 사람인, 예라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예라미의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 후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니코폴리스를 떠나 아카이아라는 로마 식민지의 수도인 고린도로 향해하였다.

제 3 장. 고린도에서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할 즈음에, 가니드는 유대 종교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유대 회당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에게 함께 예배봉사에 참석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그 날 그들은 박식한 랍비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예배봉사 후에 그들은 이 회당의 우두머리 통치자인 크리스보를 만났다. 그들은 그 회당 예배봉사에 여러 차례 다시 갔는데, 주로 크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니드는 크리스보와 그의

potential of immortal souls? The Father in heaven treats the Spirit Mother of the children of the universe as one equal to himself. It is Godlike to share your life and all that relates thereto on equal terms with the mother partner who so fully shares with you that divine experience of reproducing yourselves in the lives of your children. If you can only love your children as God loves you, you will love and cherish your wife as the Father in heaven honors and exalts the Infinite Spirit, the mother of all the spirit children of a vast universe.”

133:2.3 (1471.2) As they went on board the boat, they looked back upon the scene of the teary-eyed couple standing in silent embrace. Having heard the latter half of Jesus' message to the man, Gonod was all day occupied with meditations thereon, and he resolved to reorganize his home when he returned to India.

133:2.4 (1471.3) The journey to Nicopolis was pleasant but slow as the wind was not favorable. The three spent many hours recounting their experiences in Rome and reminiscing about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since they first met in Jerusalem. Ganid was becoming imbued with the spirit of personal ministry. He began work on the steward of the ship, but on the second day, when he got into deep religious water, he called on Joshua to help him out.

133:2.5 (1471.4) They spent several days at Nicopolis, the city which Augustus had founded some fifty years before as the “city of victory” in commemoration of the battle of Actium, this site being the land whereon he camped with his army before the battle. They lodged in the home of one Jeramy, a Greek proselyte of the Jewish faith, whom they had met on shipboard. The Apostle Paul spent all winter with the son of Jeramy in the same house in the course of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From Nicopolis they sailed on the same boat for Corinth,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Achaia.

3. AT CORINTH

133:3.1 (1471.5) By the time they reached Corinth, Ganid was becoming very much interested in the Jewish religion, and so it was not strange that, one day as they passed the synagogue and saw the people going in, he requested Jesus to take him to the service. That day they heard a learned rabbi discourse on the “Destiny of Israel,” and after the service they met one Crispus, the chief ruler of this synagogue. Many times they went back to the synagogue services, but chiefly to meet Crispus. Ganid grew to be very fond of Crispus, his wife,

아내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 그의 가족 일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가니드가 가정생활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는 크리스보에게 종교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는 진취적인 이 유대인과 20번 이상 만났으며; 여러 해가 지난 후,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배척하고 더 이상 그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갔을 때, 크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그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조직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요 지지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바울은, 훗날에 실라스 그리고 디모테와 합세하여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설교를 하였을 때, “인도 상인 아들의 유대인 가정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고린도에서 그들은 세 대륙(大陸)으로부터 온 모든 종족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 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가니드는 거의 해발 2,000피트 위에 서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일에 한 번도 싫증을 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여가시간 중 많은 부분을 유대 회당과 크리스보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유대 가정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나중에는 매료되었는데; 그것은 이 젊은 인도인에게는 하나의 계시와도 같았다.

예수와 가니드는 또 다른 유대인 가정으로부터 자주 초대를 받았는데, 회당 옆에 위치한 믿음이 깊은 상인인 유스도의 집이었다. 그리고 훗날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인도 청년과 그의 유대인 가정교사와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러는 동안 바울과 유스도는 그토록 현명하고 총명한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로마에 있을 때, 가니드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공중목욕탕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예수로 하여금 성(性)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여러 차례 유도해 보려고 하였다. 예수는 그 청년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보였다.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이 성벽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가까이로 나가서 고린도를 산보하고 있었을 때, 두 매춘부가 말을 걸어 왔다. 가니드에게는, 예수가 최고의 이상(理想)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그는 부정(不淨)하거나 혹은 악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관념이 당연하게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그는 이러한 여자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그녀들에게 비키라고 거칠게 손짓을 하였다. 이것을 본 예수가 가니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호의는 고맙지만, 너는 하느님

and their family of five children. He much enjoyed observing how a Jew conducted his family life.

133:3.2 (1472.1) While Ganid studied family life, Jesus was teaching Crispus the better ways of religious living. Jesus held more than twenty sessions with this forward-looking Jew; and it is not surprising, years afterward, when Paul was preaching in this very synagogue, and when the Jews had rejected his message and had voted to forbid his further preaching in the synagogue, and when he then went to the gentiles, that Crispus with his entire family embraced the new religion, and that he became one of the chief supports of the Christian church which Paul subsequently organized at Corinth.

133:3.3 (1472.2) During the eighteen months Paul preached in Corinth, being later joined by Silas and Timothy, he met many others who had been taught by the “Jewish tutor of the son of an Indian merchant.”

133:3.4 (1472.3) At Corinth they met people of every race hailing from three continents. Next to Alexandria and Rome, it was the most cosmopolitan city of the Mediterranean empire. There was much to attract one's attention in this city, and Ganid never grew weary of visiting the citadel which stood almost two thousand feet above the sea. He also spent a great deal of his spare time about the synagogue and in the home of Crispus. He was at first shocked, and later on charmed, by the status of woman in the Jewish home; it was a revelation to this young Indian.

133:3.5 (1472.4) Jesus and Ganid were often guests in another Jewish home, that of Justus, a devout merchant, who lived alongside the synagogue. And many times, subsequently, when the Apostle Paul sojourned in this home, did he listen to the recounting of these visits with the Indian lad and his Jewish tutor, while both Paul and Justus wondered whatever became of such a wise and brilliant Hebrew teacher.

133:3.6 (1472.5) When in Rome, Ganid observed that Jesus refused to accompany them to the public baths. Several times afterward the young man sought to induce Jesus further to express himself in regard to the relations of the sexes. Though he would answer the lad's questions, he never seemed disposed to discuss these subjects at great length. One evening as they strolled about Corinth out near where the wall of the citadel ran down to the sea, they were accosted by two public women. Ganid had imbibed the idea, and rightly, that Jesus was a man of high ideals, and that he abhorred everything which partook of uncleanness or savored of evil; accordingly he spoke sharply to these women and rudely motioned them away. When Jesus saw this, he said to Ganid: “You mean well, but you should not presume thus to

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비록 어찌다가 그들이 실수를 범한 자녀가 되어있다 해도, 그렇게 주체 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기에 이 여자들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겠는가? 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인 모든 환경들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잠시 멈추자꾸나.” 매춘부들은 가니드에게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말에 더욱 더 놀랐다.

그들은 그곳에서 달빛 아래에 서 있었고, 예수는 이렇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 신성한 영(靈)이 모든 인간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알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언제나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필자사안에는 개별 존재와 종족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자께서 넣어주신 많은 자연의 물리적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납득하려는 노력에서,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이기심과 죄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맞붙어 싸우려는 노력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가니드야, 이 두 여인들 중 누구도 의도적으로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그들이 많은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을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분명히 보이는 잔인한 숙명의 손에서 매우 고통을 겪어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망의 경계에 이르는 낙심 안에서, 그들에게 닥친 그 시간의 압력에 굴복하였고, 그리고 어쩔 수없이 택해야 하는 생계수단으로, 그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러한 아무 맛도 없는 수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니드야, 어떤 자들은 실제로 가슴에서부터 악하다; 그런 사람들은 비열한 일들을 행하려고 고의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들을 들여다볼 때, 나쁘다거나 간악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멈추자, 가니드의 음성은 막혀 버렸고 머뭇거리며 간신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저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그들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한 것을, 그분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다. 자,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간단한 음식을 청한 후, 앞으로의 새롭고 나은 일생을 위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자.” 놀란 여자들은 이때까지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서로를 쳐다보다가 남자들이 길을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수가 가니드와 함께 이러한 두 낯선 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때, 유스도의 아내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라: “이런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 용서하기 바라며, 가니드와 내 몫으로 약간의 음식을 주면 좋겠고, 새로-발견한 우리 친구들도 또한 영양이 필요하니, 이들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

speak to the children of God, even though they chance to be his erring children. Who are we that we should sit in judgment on these women? Do you happen to know all of the circumstances which led them to resort to such methods of obtaining a livelihood? Stop here with me while we talk about these matters.” The courtesans were astonished at what he said even more than was Ganid.

133:3.7 (1472.6) As they stood there in the moonlight, Jesus went on to say: “There lives within every human mind a divine spirit, the gift of the Father in heaven. This good spirit ever strives to lead us to God, to help us to find God and to know God; but also within mortals there are many natural physical tendencies which the Creator put there to serve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and the race. Now, oftentimes, men and women become confused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o grapple with the manifold difficulties of making a living in a world so largely dominated by selfishness and sin. I perceive, Ganid, that neither of these women is willfully wicked. I can tell by their faces that they have experienced much sorrow; they have suffered much at the hands of an apparently cruel fate; they have not intentionally chosen this sort of life; they have, in discouragement bordering on despair, surrendered to the pressure of the hour and accepted this distasteful means of obtaining a livelihood as the best way out of a situation that to them appeared hopeless. Ganid, some people are really wicked at heart; they deliberately choose to do mean things, but, tell me, as you look into these now tear-stained faces, do you see anything bad or wicked?” And as Jesus paused for his reply, Ganid’s voice choked up as he stammered out his answer: “No, Teacher, I do not. And I apologize for my rudeness to them — I crave their forgiveness.” Then said Jesus: “And I bespeak for them that they have forgiven you as I speak for my Father in heaven that he has forgiven them. Now all of you come with me to a friend’s house where we will seek refreshment and plan for the new and better life ahead.” Up to this time the amazed women had not uttered a word; they looked at each other and silently followed as the men led the way.

133:3.8 (1473.1) Imagine the surprise of Justus’ wife when, at this late hour, Jesus appeared with Ganid and these two strangers, saying: “You will forgive us for coming at this hour, but Ganid and I desire a bite to eat, and we would share it with these our new-found friends, who are also in need of nourishment; and besides all this, we come to you

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함께 이 여인들이 일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조언하는 데에, 너희가 관심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저들이 너희에게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하겠지만, 내가 추측컨대 그들은 많은 곤경을 겪어 왔으며, 여기 당신의 집에 지금 있는 그들의 현존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선한 사람들을 알기를 열망하고 있는지를, 자신들이 될 수 있는 용감하고 고귀한 여자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하늘의 천사들에게도—보여줄 기회를 얼마나 기꺼이 끌어안을 지를 증언하고 있다.”

유스도의 아내인 마르다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예수는 뜻밖에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한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고자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너희들—세 여인들—을 여기에 남겨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너희가 땅에서의 새롭고 좀 더 나은 일생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일생을 위한 계획을 짜는 동안에,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인도 받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가니드는 그 여인들에게서 떠났다. 이때까지 두 매춘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가니드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마르다도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곧 이러한 난국에 대처하였고, 낮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가 그녀에게 기대하였던 모든 일을 이행하였다. 이 두 여인들 중에 나이든 이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영원한 삶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여인은 유스도의 일터에서 일하였으며, 나중에는 고린도에서의 첫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일생동안 회원이 되었다.

예수와 가니드는 크리스보의 집에서 가이우스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바울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고린도에서 수십 명의 훌륭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접촉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훗날에 발족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장기간 동안 방문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고에 대비하여, 그 유대인 개인교사가 길을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아퀼라와 프리실라에 의해 큰 세력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아퀼라는 견유학파의 한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예수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피난자들이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들도 역시 천막-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with the thought that you will be interested in counseling with us as to the best way to help these women get a new start in life. They can tell you their story, but I surmise they have had much trouble, and their very presence here in your house testifies how earnestly they crave to know good people, and how willingly they will embrace the opportunity to show all the world — and even the angels of heaven — what brave and noble women they can become.”

133:3.9 (1473.2) When Martha, Justus' wife, had spread the food on the table, Jesus, taking unexpected leave of them, said: "As it is getting late, and since the young man's father will be awaiting us, we pray to be excused while we leave you here together — three women — the beloved children of the Most High. And I will pray for your spiritual guidance while you make plans for a new and better life on earth and eternal life in the great beyond."

133:3.10 (1473.3) Thus did Jesus and Ganid take leave of the women. So far the two courtesans had said nothing; likewise was Ganid speechless. And for a few moments so was Martha, but presently she rose to the occasion and did everything for these strangers that Jesus had hoped for. The elder of these two women died a short time thereafter, with bright hopes of eternal survival, and the younger woman worked at Justus' place of business and later became a lifelong member of the first Christian church in Corinth.

133:3.11 (1473.4) Several times in the home of Crispus, Jesus and Ganid met one Gaius, who subsequently became a loyal supporter of Paul. During these two months in Corinth they held intimate conversations with scores of worth-while individuals, and as a result of all these apparently casual contacts more than half of the individuals so affected became members of the subsequent Christian community.

133:3.12 (1473.5) When Paul first went to Corinth, he had not intended to make a prolonged visit. But he did not know how well the Jewish tutor had prepared the way for his labors. And further, he discovered that great interest had already been aroused by Aquila and Priscilla, Aquila being one of the Cynics with whom Jesus had come in contact when in Rome. This couple were Jewish refugees from Rome, and they quickly embraced Paul's teachings. He lived with them and worked with them, for they were also tentmakers. It was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at Paul prolonged his stay in Corinth.

제 4 장. 고린도에서의 개인적 일

4. PERSONAL WORK IN CORINTH

예수와 가니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대화를 하였으며, 그들 모두는 예수로부터 받아들이는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큰 이익을 얻었다.

방앗간 주인에게는, 삶의 체험이라는 방앗간에서 진리의 곡식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신성한 생명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직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우유를 주어라. 너의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명활동에서, 매력적인 형태로서 그리고 너에게 질문하는 각 사람의 접수성의 수용능력에 알맞은, 영적 음식으로 봉사하라.”

그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저에게 속한 것들은 시저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것들은 하느님께 바쳐라. 오로지 신(神)에 의해서만 요구될 수 있는 경의를, 오만하여진 시저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경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네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충성은, 덕망 있는 황제에 대한 너의 헌신에 있어서 더욱 충성되고 신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미트라 예배종파의 진지한 영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영원한 구원의 종교를 찾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광스런 진리를 사람이 만든 신비들과 인간의 철학 안에서 추구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신비가 너 자신의 혼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늘의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것과, 이 생명을 통하여 그리고 죽음의 문전에서부터 하느님이 그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리시는 영원한 최고의 빛에 다다를 때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느님께-봉사하는 필사자들을 이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만약 네가 것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하느님을 아는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케락주의 학파의 선생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최선을 선택하며 선을 존중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 속에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실현으로부터 유래되는 영적 권역 안에 체험되는 필사자 일생의 더욱 위대한 것들을 알아보는데 실패하는 것이면, 과연 네가 현명할까? 인간의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느님을 아는 일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의 영은 네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아버지,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시고 우주들의 주님이신 그를 직접 만나기까지의 길고도 거의 끝이 없는 여정으로 너를 인도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스의 건축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친구여, 네가 사람들의 물질적인 건물들을 짓는 것처럼, 네 혼속에 있는 그 신성한 영을 닮도록 영적 성격을 발전시켜라. 이 세상에서 건축자로 성공하는 일이, 하늘의 왕국의 영적 아들이 되는 일보다 더 앞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다른

133:4.1 (14/4.1) Jesus and Ganid had many more interesting experiences in Corinth. They had close converse with a great number of persons who greatly profited by the instruction received from Jesus.

133:4.2 (1474.2) The miller he taught about grinding up the grains of truth in the mill of living experience so as to render the difficult things of divine life readily receivable by even the weak and feeble among one's fellow mortals. Said Jesus: “Give the milk of truth to those who are babes in spiritual perception. In your living and loving ministry serve spiritual food in attractive form and suited to the capacity of receptivity of each of your inquirers.”

133:4.3 (1474.3) To the Roman centurion he said: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The sincere service of God and the loyal service of Caesar do not conflict unless Caesar should presume to arrogate to himself that homage which alone can be claimed by Deity. Loyalty to God, if you should come to know him, would render you all the more loyal and faithful in your devotion to a worthy emperor.”

133:4.4 (1474.4) To the earnest leader of the Mithraic cult he said: “You do well to seek for a religion of eternal salvation, but you err to go in quest of such a glorious truth among man-made mysteries and human philosophies. Know you not that the mystery of eternal salvation dwells within your own soul? Do you not know that the God of heaven has sent his spirit to live within you, and that this spirit will lead all truth-loving and God-serving mortals out of this life and through the portals of death up to the eternal heights of light where God waits to receive his children? And never forget: You who know God are the sons of God if you truly yearn to be like him.”

133:4.5 (1474.5) To the Epicurean teacher he said: “You do well to choose the best and esteem the good, but are you wise when you fail to discern the greater things of mortal life which are embodied in the spirit realms deriv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God in the human heart? The great thing in all human experience is the realization of knowing the God whose spirit lives within you and seeks to lead you forth on that long and almost endless journey of attaining the personal presence of our common Father, the God of all creation, the Lord of universes.”

133:4.6 (1474.6) To the Greek contractor and builder he said: “My friend, as you build the material structures of men, grow a spiritual character in the similitude of the divine spirit within your soul. Do not let your achievement as a temporal builder outrun your attainment as a spiritual son of the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의 맨션들을 짓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해 영원의 맨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한 도시가 있으니 그 기초는 정의로움과 진리이며, 그것의 건축자이자 만드는 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라.”

로마의 법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 너 자신도 언젠가는 우주의 통치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공정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판결하되, 너도 언젠가는 최극 중재자의 힘에 의한 자비로운 동정심을 간청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어라. 너 자신이 비슷한 경우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결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법의 마음에 의해서 안내를 받도록 해라. 그리고 네 앞에 불러온 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공정함에 의해 조절된 공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언젠가는 모든 지상의 재판관 앞에 서서 자비에 의해 완화된 공의를 기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 여인숙의 여주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고자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라.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려 보내신 자신의 영이 내주(內住)하는, 그리하여 신성한 영으로 이 모든 선물들을 증여한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환시키고 그들의 혼을 인도하려고 애쓰는, 개인들 안에 있는 하느님에게, 네가 사명활동한다는 사실이 점점 증가하는 실현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일상적인 단조롭고 힘든 일들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로 끌어 올려라.”

예수는 어느 중국인 상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수는 그에게 권고하였다: “하느님은 너의 참된 영 조상이시니,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아버지의 영은 언제까지나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리고 너의 혼-방향이 항상 하늘을 향하도록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불멸의 영이 무의식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네가 만일 따른다면, 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드높아지는 길에서, 계속하여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르게 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네가 그를 추구함으로써 점점 더 그와 같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자, 장 씨여 잘 있어라, 하지만 단지 한 계절 동안이니, 이는 영과 혼들의 아버지가 파라다이스에-묶여있는 자들을 위하여 즐거움이 가득한 여러 멈춤-장소들을 마련해 온, 빛의 세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나는 네가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진리의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너는 네가 지닌 네 혼의 영(靈)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언제라도 애쓴 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일은 참으로 어렵고, 성공에 대한 의식을 얻는 것도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질적 마음이 그 속의 내주하는 영과 교통하려는 모든 성실한 시도는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는데, 것처럼 드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한 놀라운 인간적

kingdom of heaven. While you build the mansions of time for another, neglect not to secure your title to the mansions of eternity for yourself. Ever remember, there is a city whose foundations are righteousness and truth, and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133:4.7 (1474.7) To the Roman judge he said: “As you judge men, remember that you yourself will also some day come to judgment before the bar of the Rulers of a universe. Judge justly, even mercifully, even as you shall some day thus crave merciful consideration at the hands of the Supreme Arbiter. Judge as you would be judge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us being guided by the spirit of the law as well as by its letter. And even as you accord justice dominated by fairness in the light of the need of those who are brought before you, so shall you have the right to expect justice tempered by mercy when you sometime stand before the Judge of all the earth.”

133:4.8 (1475.1) To the mistress of the Greek inn he said: “Minister your hospitality as one who entertains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Elevate the drudgery of your daily toil to the high levels of a fine art through the increasing realization that you minister to God in the persons whom he indwells by his spirit which has descended to live within the hearts of men, thereby seeking to transform their minds and lead their souls to the knowledge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these bestowed gifts of the divine spirit.”

133:4.9 (1475.2) Jesus had many visits with a Chinese merchant. In saying good-bye, he admonished him: “Worship only God, who is your true spirit ancestor. Remember that the Father’s spirit ever lives within you and always points your soul-direction heavenward. If you follow the unconscious leadings of this immortal spirit, you are certain to continue on in the uplifted way of finding God. And when you do attain the Father in heaven, it will be because by seeking him you have become more and more like him. And so farewell, Chang, but only for a season, for we shall meet again in the worlds of light where the Father of spirit souls has provided many delightful stopping-places for those who are Paradise-bound.”

133:4.10 (1475.3) To the traveler from Britain he said: “My brother, I perceive you are seeking for truth, and I suggest that the spirit of the Father of all truth may chance to dwell within you. Did you ever sincerely endeavor to talk with the spirit of your own soul? Such a thing is indeed difficult and seldom yields consciousness of success; but every honest attempt of the material mind to communicate with its indwelling spirit meets with certain success, notwithstanding that the majority of all such magnificent human experiences must

체험들의 대부분이 것처럼 하느님을-아는 필사자들의 혼 속에 초(超)의식적 등록으로 오랫동안 남는 것이 틀림없다.”

가출한 소년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하느님과 네 자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가슴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영과 네 자신을, 너는 가지고 있다. 아이야, 네 자신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일을 멈추어라; 일생의 사실들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의 용기 넘치는 실천 관행에 이르기까지 진지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느님과 의 아들관계에서의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일생에서의 확실성을 굳게 지녀라. 지금 오늘부터, 실제 사내, 용감하게 그리고 충명하게 일생을 부딪칠 각오를 가진 사내가 되리라”는 목적을 두어라.”

마지막 시간이 임한 사형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너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다. 너는 길을 잃어버렸고; 범죄의 울가미에 걸려들었다. 너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나는 네가 이 세상의 생명을 대가(代價)로 지불해야 할 만큼의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악을 행했고, 너의 동료들은 너를 죄인으로 심판하였다; 너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너나 나나, 국가 자체가 선택하는 방식 안에 있는 자아-방어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부과된 벌을,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너의 동료들은 너의 행위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심판관이 있는데, 그는 너의 실제 동기와 더욱 좋은 의도로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 너의 참회 가 순수하고 너의 신앙이 진지한 것이라면,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에게 의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네 혼이 공의를 구하고 자비를 누릴 기회에서 어떤 편견도 주지 않는다.”

예수는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굶주린 혼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세 여행자는 고린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의 중심지로 더욱 알려진 아테네를 제외하면, 고린도는 이러한 로마 통치 시대 동안에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으며, 번성하는 이 상업의 도시에서 머문 두 달은, 그들 셋 모두에게 많은 가치 있는 체험을 얻을 기회를 잘 제공하였다. 이 도시에서의 체류는 로마에서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모든 장소들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들 중의 하나였다.

고노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마침내 그의 사업상의 일을 모두 완결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테네로 향해할 준비를 하였다. 10마일 정도 되는, 고린도의 어느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는, 육로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로 여행하였다.

long remain as superconscious registrations in the souls of such God-knowing mortals.”

133:4.11 (1475.4) To the runaway lad Jesus said: “Remember, there are two things you cannot run away from — God and yourself. Wherever you may go, you take with you yourself and the spirit of the heavenly Father which lives within your heart. My son, stop trying to deceive yourself; settle down to the courageous practice of facing the facts of life; lay firm hold on the assurances of sonship with God and the certainty of eternal life, as I have instructed you. From this day on purpose to be a real man, a man determined to face life bravely and intelligently.”

133:4.12 (1475.5) To the condemned criminal he said at the last hour: “My brother, you have fallen on evil times. You lost your way; you became entangled in the meshes of crime. From talking to you, I well know you did not plan to do the thing which is about to cost you your temporal life. But you did do this evil, and your fellows have adjudged you guilty; they have determined that you shall die. You or I may not deny the state this right of self-defense in the manner of its own choosing. There seems to be no way of humanly escaping the penalty of your wrongdoing. Your fellows must judge you by what you did, but there is a Judge to whom you may appeal for forgiveness, and who will judge you by your real motives and better intentions. You need not fear to meet the judgment of God if your repentance is genuine and your faith sincere. The fact that your error carries with it the death penalty imposed by man does not prejudice the chance of your soul to obtain justice and enjoy mercy before the heavenly courts.”

133:4.13 (1476.1) Jesus enjoyed many intimate talks with a large number of hungry souls, too many to find a place in this record. The three travelers enjoyed their sojourn in Corinth. Excepting Athens, which was more renowned as an educational center, Corinth was the most important city in Greece during these Roman times, and their two months' stay in this thriving commercial center afforded opportunity for all three of them to gain much valuable experience. Their sojourn in this city wa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eir stops on the way back from Rome.

133:4.14 (1476.2) Gonod had many interests in Corinth, but finally his business was finished, and they prepared to sail for Athens. They traveled on a small boat which could be carried overland on a land track from one of Corinth's harbors to the other, a distance of ten miles.

제 5 장.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토의

5. AT ATHENS — DISCOURSE ON SCIENCE

133:5.1 (1476.3)

그들은 곧 그리스의 과학과 학문의 오래된 중심지에 도착하였고, 가니드는 그리스에, 그것도 아테네에 와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였는데, 그 곳이 자기 나라인 인도 국경까지 한 때 지배하였던 알렉산더 제국의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사업상 불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고노드는 많은 흥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다방면의 학식을 가진 선생이 자기 아들과 주고받는 재미있는 토의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와 가니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테네에는 하나의 위대한 대학이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 세 사람은 그 대학의 강의실들을 자주 방문하였다. 예수와 가니드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에서의 강의에 참석하였을 때, 플라톤의 가르침에 대해 면밀하게 토론을 했었다. 그들 모두는 아직도 도시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의 예술 작품들을 관람하였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가 그들의 숙소에서 어느 날 저녁 그리스 철학자와 과학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현학자(衒學者)는 거의 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고, 그가 자신의 강연을 완결하자, 예수가 말하였는데, 현대적인 사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에너지, 중력, 빛, 전기에서의 기세 현시활동을 측정하겠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들 우주 현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과학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 과학은 물질적 에너지 작용들을 다루며; 종교는 영원한 가치들을 다룬다. 진정한 철학은, 이러한 양적인 관찰과 질적인 관찰을 상관관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지혜로부터 태동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수학적 자부심과 통계학적 자기중심주의에 시달리게 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논리는 물질적 세상에서 유효하고, 수학은 물질적인 것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지만; 일생의 문제들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두, 전적으로 믿을 만하거나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일생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닌 현상들을 포용한다. 만약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의 털을 깎는데 10분을 소요된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분에 그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수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냐하면 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 일이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단위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0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개인성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개인성 관계적-연합은 단순한 산술적 합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개인성들 숫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합계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조화-협동하여 일하는 조화된 인간 존재들의

133:5.1 (1476.3) They shortly arrived at the olden center of Greek science and learning, and Ganid was thrilled with the thought of being in Athens, of being in Greece, the cultural center of the onetime Alexandrian empire, which had extended its borders even to his own land of India. There was little business to transact; so Gonod spent most of his time with Jesus and Ganid, visiting the many points of interest and listening to the interesting discussions of the lad and his versatile teacher.

133:5.2 (1476.4) A great university still thrived in Athens, and the trio made frequent visits to its halls of learning. Jesus and Ganid had thoroughly discussed the teachings of Plato when they attended the lectures in the museum at Alexandria. They all enjoyed the art of Greece, examples of which were still to be found here and there about the city.

133:5.3 (1476.5) Both the father and the son greatly enjoyed the discussion on science which Jesus had at their inn one evening with a Greek philosopher. After this pedant had talked for almost three hours, and when he had finished his discourse, Jesus, in terms of modern thought, said:

133:5.4 (1476.6) Scientists may some day measure the energy, or force manifestations, of gravitation, light, and electricity, but these same scientists can never (scientifically) tell you what these universe phenomena are. Science deals with physical-energy activities; religion deals with eternal values. True philosophy grows out of the wisdom which does its best to correlate the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bservations. There always exists the danger that the purely physical scientist may become afflicted with mathematical pride and statistical egotism, not to mention spiritual blindness.

133:5.5 (1476.7) Logic is valid in the material world, and mathematics is reliable when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physical things; but neither is to be regarded as wholly dependable or infallible when applied to life problems. Life embraces phenomena which are not wholly material. Arithmetic says that, if one man could shear a sheep in ten minutes, ten men could shear it in one minute. That is sound mathematics, but it is not true, for the ten men could not so do it; they would get in one another's way so badly that the work would be greatly delayed.

133:5.6 (1477.1) Mathematics asserts that, if one person stands for a certain unit of intellectual and moral value, ten persons would stand for ten times this value. But in dealing with human personality it would be nearer the truth to say that such a personality association is a sum equal to the square of the number of personalities concerned in the equation rather than the simple arithmetical

사회 집단은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보다는 훨씬 더 큰 기세를 나타낸다.

양(量)은 하나의 사실로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고, 그것으로 과학적 확일성이 되어간다. 본질 특성인 질(質)은 마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들에 대한 하나의 추정 평가를 대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개별존재의 체험으로 남아야만 한다. 과학과 종교가 둘 모두 덜 독단적이 되고 비평에서 더욱 관용적이 되면, 철학은 그러면 우주의 지능적 이해 안에서 합일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우주의 작용들을 실재성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합일은 조화우주 우주 안에 존재한다. 실제의 우주는 영원한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의 유한한 마음이 논리적이고 진실하고 일치하는 생각의 합일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를 아는 이 마음 상태는, 양적인 사실과 질적인 가치가 파라다이스 아버지 안에서 공통의 원인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실체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주 현상의 의도적인 합일에 대한 확대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그것은 진보적인 개인성 성취의 영적 목표까지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하여 변화하는 미(未)개인적 관계들과 진화하는 개인적 관계들이 있는 살아있는 우주에 대한 변화하지 않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는 합일이라는 개념이다.

물질과 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상태는, 실제 우주의 진정한 합일이 이루는 서로 관계되고 상호-연관된 세 가지 차원들이다. 사실과 가치에 대한 우주 현상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어찌되었건, 최극자 안에 통합되어 있다.

물질적 실존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뿐만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 에너지에게도 부여된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필요한 운동 정도를 획득하면, 바로 이 에너지들은, 적합한 조건 속에서 질량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명백한 실체들의 현존을 단독으로 착상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도 또한 실체라는 점을 잊지 마라. 그리고 에너지-질량, 마음 그리고 영의 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한 것이다—그것은 우주 아버지와 그의 절대 조화-협동자들의 본성과 반응들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예수의 말들에 경탄하였고, 그때 그리스인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인종적 우월성이나 종교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마침내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아테네에서의 체류는 즐겁고 유익한 것이었으나, 인간들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당시의 아테네인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과거 명성에 대하여 그리고

sum. A social group of human beings in coordinated working harmony stands for a force far greater than the simple sum of its parts.

133:5.7 (1477.2) Quantity may be identified as a *fact*, thus becoming a scientific uniformity. Quality, being a matter of mind interpretation, represents an estimate of *values*, and must, therefore, remain an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When both science and religion become less dogmatic and more tolerant of criticism, philosophy will then begin to achieve *unity* in the intelligent comprehension of the universe.

133:5.8 (1477.3) There is unity in the cosmic universe if you could only discern its workings in actuality. The real universe is friendly to every child of the eternal God. The real problem is: How can the finite mind of man achieve a logical, true, and corresponding unity of thought? This universe-knowing state of mind can be had only by conceiving that the quantitative fact and the qualitative value have a common causation in the Paradise Father. Such a conception of reality yields a broader insight into the purposeful unity of universe phenomena; it even reveals a spiritual goal of progressive personality achievement. And this is a concept of unity which can sense the unchanging background of a living universe of continually changing impersonal relations and evolving personal relationships.

133:5.9 (1477.4) Matter and spirit and the state intervening between them are three interrelated and interassociated levels of the true unity of the real universe. Regardless of how divergent the universe phenomena of fact and value may appear to be, they are, after all, unified in the Supreme.

133:5.10 (1477.5) Reality of material existence attaches to unrecognized energy as well as to visible matter. When the energies of the universe are so slowed down that they acquire the requisite degree of motion, then, under favorable conditions, these same energies become mass. And forget not, the mind which can alone perceive the presence of apparent realities is itself also real. And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universe of energy-mass, mind, and spirit, is eternal — it exists and consists in the nature and reaction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his absolute coordinates.

133:5.11 (1477.6) They were all more than astounded at the words of Jesus, and when the Greek took leave of them, he said: “At last my eyes have beheld a Jew who thinks something besides racial superiority and talks something besides religion.” And they retired for the night.

133:5.12 (1477.7) The sojourn in Athens was pleasant and profitable, but it was not particularly fruitful in its human contacts. Too many of the Athenians of that day were either intellectually proud of their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시절에 그리스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던 때에 살았던 열등한 노예들의 저들 후손들, 정신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 대하여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테네의 시민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명민한 통찰력의 마음들이 여전히 발견될 수 있었다.

제 6 장.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아테네를 떠난 그 여행자들은 트로아를 경유하여 아시아 지방에서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에베소로 갔다. 그들은 도시에서 2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에베소인들의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아르테미스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女神)이었으며, 그것은 고대 아나톨리안 에서의 아주 초기 시대의 어머니 여신을 이제껏 영속한 것이었다. 그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거대한 사원에는 조잡한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가니드는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형상을 존중하도록 일찍이 배웠던 것들 전부를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소아시아의 이 다산(多産)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성물함(聖物函)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날 밤에,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 머물던 셋째 날에, 그들은 항만 입구를 준설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강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점심 때,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매우 낙심되어 있는 한 젊은 페니키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넘어 그 위로 승진했던 어떤 젊은이를 시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서, 히브리의 오래 된 속담을 인용하였다: “사람의 재능이 그를 위해 길을 넓게 하며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의 앞으로 데려다 준다.”

그들이 지중해를 여행하는 동안 방문했던 모든 큰 도시들 중에서, 이곳에서 그들은 뒤이어 일어나는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일에 대해 가장 적은 가치를 성취했다. 그리스도교가 에베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2년 이상을 살았는데, 생계를 위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티라누스 학파가 대부분이었던 청중들에게 종교와 철학에 관한 강의를 매일 밤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철학 학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한 진보적인 사상가가 있었는데, 예수는 그와 몇 차례의 유익한 회합을 가졌다. 이 토의를 통하여 예수는 “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박식한 그리스인은 마침내 예수에게 그가 사용하는 “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혼은, 자아-반영적이고, 진리를-식별하고, 영을-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인간 존재를 동물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언제까지

reputation of another day or mentally stupid and ignorant, being the offspring of the inferior slaves of those earlier periods when there was glory in Greece and wisdom in the minds of its people. Even then, there were still many keen minds to be found among the citizens of Athens.

6. AT EPHESUS — DISCOURSE ON THE SOUL

133:6.1 (1477.8) On leaving Athens, the travelers went by way of Troas to Ephesus,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Asia. They made many trips out to the famous temple of Artemis of the Ephesians, about two miles from the city. Artemis was the most famous goddess of all Asia Minor and a perpetuation of the still earlier mother goddess of ancient Anatolian times. The crude idol exhibited in the enormous temple dedicated to her worship was reputed to have fallen from heaven. Not all of Ganid's early training to respect images as symbols of divinity had been eradicated, and he thought it best to purchase a little silver shrine in honor of this fertility goddess of Asia Minor. That night they talked at great length about the worship of things made with human hands.

133:6.2 (1478.1) On the third day of their stay they walked down by the river to observe the dredging of the harbor's mouth. At noon they talked with a young Phoenician who was homesick and much discouraged; but most of all he was envious of a certain young man who had received promotion over his head. Jesus spoke comforting words to him and quoted the olden Hebrew proverb: “A man's gift makes room for him and brings him before great men.”

133:6.3 (1478.2) Of all the large cities they visited on this tour of the Mediterranean, they here accomplished the least of value to the subsequent work of the Christian missionaries. Christianity secured its start in Ephesus largely through the efforts of Paul, who resided here more than two years, making tents for a living and conducting lectures on religion and philosophy each night in the main audience chamber of the school of Tyrannus.

133:6.4 (1478.3) There was a progressive thinker connected with this local school of philosophy, and Jesus had several profitable sessions with him. In the course of these talks Jesus had repeatedly used the word “soul.” This learned Greek finally asked him what he meant by “soul,” and he replied:

133:6.5 (1478.4) “The soul is the self-reflective, truth-discerning, and spirit-perceiving part of man which forever elevates the human being above the level

나 높이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 자아-의식은, 의식하는 것 그리고 의식 자체는, 혼이 아니다. 도덕적 자아-의식이 참된 인간 자아-실현이며 인간 혼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혼은 인간 체험에서의 잠재적인 생존의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의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하느님을 알려는 능력과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충동은 혼의 특징들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사고와 영적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괴어있는 혼은 죽어 가는 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마음 속에 내주하고 있는 신성한 영과 뚜렷하게 다르다. 신성한 영은 인간 마음의 첫 번째 도덕적 활동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것이 혼이 탄생되는 계기이다.

“혼이 구원되거나 또는 잃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의식이 그에 연관된 불멸하는 영적 자질과의 영원한 결합을 통하여, 생존적 지위를 달성하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의 자아-실현에서의 영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생존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혼의 갈등은, 도덕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자아-의식과 그리고 순수하게 지적인 자아-의식 사이의 조화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혼은, 성숙되고 고상해지고 영성화 되었을 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물질적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개재 되어가는 하나의 실존 개체로 존재하려고 가까이 오고, 그로서 하늘의 지위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진화하는 혼은, 묘사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실증하기란 더욱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 조사나 혹은 영적 증명의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적 과학은 혼의 실존을 현시할 수 없으며, 순수한 영-실험도 그럴 수 없다. 물질적 과학과 영적 기준 모두가 인간 혼의 실존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의식을 가진 모든 필사자는 자신의 혼의 실존을 하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개인적 체험으로서 알고 있다.”

제 7 장. 키프러스에서의 체류—마음에 관한 강연

그 여행자들은 로드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키프러스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그들은 긴 해상여행을 즐겼으며, 육신과 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의 목적지인 그 섬에 도착하였

그들의 지중해 여행이 거의 끝 무렵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키프러스 방문에서는 실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들은 바보스에 상륙하였으며, 가까운 산에서 몇 주간을 지내기 위한 생필품들을 즉시 모으기 시작하였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건을 동물들에게 싣고 산을 향해 떠났다.

of the animal world. Self-consciousness, in and of itself, is not the soul. Moral self-consciousness is true human self-realization and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the human soul, and the soul is that part of man which represents the potential survival value of human experience. Moral choice and spiritual attainment, the ability to know God and the urge to be like him,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l. The soul of man cannot exist apart from moral thinking and spiritual activity. A stagnant soul is a dying soul. But the soul of man is distinct from the divine spirit which dwells within the mind. The divine spirit arrives simultaneously with the first moral activity of the human mind, and that is the occasion of the birth of the soul.

133:6.6 (1478.5) “The saving or losing of a soul has to do with whether or not the moral consciousness attains survival status through eternal alliance with its associated immortal spirit endowment. Salvation is the spiritualization of the self-realization of the moral consciousness, which thereby becomes possessed of survival value. All forms of soul conflict consist in the lack of harmony between the moral, or spiritual, self-consciousness and the purely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133:6.7 (1478.6) “The human soul, when matured, ennobled, and spiritualized, approaches the heavenly status in that it comes near to being an entity intervening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the material self and the divine spirit. The evolving soul of a human being is difficult of description and more difficult of demonstration because it is not discoverable by the methods of either material investigation or spiritual proving. Material science cannot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soul, neither can pure spirit-testing. Notwithstanding the failure of both material science and spiritual standards to discover the existence of the human soul, every morally conscious mortal *knows* of the existence of his *soul* as a *real* and actual personal experience.”

7. THE SOJOURN AT CYPRUS — DISCOURSE ON MIND

133:7.1 (1479.1) Shortly the travelers set sail for Cyprus, stopping at Rhodes. They enjoyed the long water voyage and arrived at their island destination much rested in body and refreshed in spirit.

133:7.2 (1479.2) It was their plan to enjoy a period of real rest and play on this visit to Cyprus as their tour of the Mediterranean was drawing to a close. They landed at Paphos and at once began the assembly of supplies for their sojourn of several weeks in the near-by mountains. On the third day after their arrival they started for the hills with their

두 주일 동안 이 세 사람들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도 어린 가니드가 몹시 앓게 되었다. 두 주일 동안 그는 심한 열로 고생을 하였고, 가끔씩 헛소리도 하였다; 예수와 고노드는 병자를 간호하느라 바빴다. 예수는 능숙하고 부드럽게 그 소년을 돌보았는데, 그 아버지는 고통 받는 소년을 돌보는 모든 일에서 현시된 예수의 자상함과 능숙함 모두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고, 게다가 그 소년의 병은 너무 심해서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산 속에서 소년이 회복하도록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 할 뿐이었다.

가니드가 회복하고 있던 3주 동안, 예수는 그에게 자연과 자연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 그리고 산을 배회하면서 그들이 즐겼던 것은, 그 소년이 질문을 하고 예수가 대답을 하는 것이었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이 모든 일에 감탄하였다.

그 산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가니드는 인간 마음의 작용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시간 동안의 토의 끝에 그 소년은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이 고등 동물들보다 더 높은 자아-의식의 형태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았다:

아이야, 사람의 마음과 그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에 대하여 나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네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자아-의식이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동물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의 원시인으로 된다. 그러한 달성은 미(未)개인적 에너지와 영-이해하는 마음 사이의 조화-협동적인 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간 개인성을 위한 하나의 절대적 초점(焦點),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증여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관념들은 감각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관념들이란 감각한 것들 위에 개인 자아의 반영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그 자아는 그가 감각한 것들의 전체 합계보다 큰 것이다. 진화하는 자아신분 안에서의 합일로 접근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그 합일은 자아-의식적인 동물-기원 마음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절대 합일의 일부분인 내주하는 현존으로부터 도래한다.

동물에 불과한 존재들은 어떤 것도, 시간에 대한 자아-의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들은 관계적-연합된 감각-인식과 그것을 기억하는 생리학적 조화-협동 체계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감각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을 체험한다거나 혹은 지능적이고 반영적인 인간의 해석들이 내리는 결론 속에 현시되는 것과 같은 통합된 육체적인 체험들의 의도적인 관계적-연합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혀 없

well-loaded pack animals.

133:7.3 (1479.3) For two weeks the trio greatly enjoyed themselves, and then, without warning, young Ganid was suddenly taken grievously ill. For two weeks he suffered from a raging fever, oftentimes becoming delirious; both Jesus and Gonod were kept busy attending the sick boy. Jesus skillfully and tenderly cared for the lad, and the father was amazed by both the gentleness and adeptness manifested in all his ministry to the afflicted youth. They were far from human habitations, and the boy was too ill to be moved; so they prepared as best they could to nurse him back to health right there in the mountains.

133:7.4 (1479.4) During Ganid's convalescence of three weeks Jesus told him many interesting things about nature and her various moods. And what fun they had as they wandered over the mountains, the boy asking questions, Jesus answering them, and the father marveling at the whole performance.

133:7.5 (1479.5) The last week of their sojourn in the mountains Jesus and Ganid had a long talk on the functions of the human mind. After several hours of discussion the lad asked this question: "But, Teacher,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that man experiences a higher form of self-consciousness than do the higher animals?" And as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answered:

133:7.6 (1479.6) My son, I have already told you much about the mind of man and the divine spirit that lives therein, but now let me emphasize that self-consciousness is a reality. When any animal becomes self-conscious, it becomes a primitive man. Such an attainment results from a co-ordination of function between impersonal energy and spirit-conceiving mind, and it is this phenomenon which warrants the bestowal of an absolute focal point for the human personality, the spirit of the Father in heaven.

133:7.7 (1479.7) Ideas are not simply a record of sensations; ideas are sensations plus the refl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personal self; and the self is more than the sum of one's sensations. There begins to be something of an approach to unity in an evolving selfhood, and that unity is derived from the indwelling presence of a part of absolute unity which spiritually activates such a self-conscious animal-origin mind.

133:7.8 (1479.8) No mere animal could possess a time self-consciousness. Animals possess a physiological co-ordination of associated sensation-recognition and memory thereof, but none experience a meaningful recognition of sensation or exhibit a purposeful association of these combined physical experiences such as is manifested in the conclusions of intelligent and

다. 자아-의식이 실존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한 실체성과 연관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의 잠재적인 아들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가 우주의 최극 합일을 달성하게 됨을 예시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단지 의식의 연속 상태들에 대한 합계도 아니다. 의식 분류자와 관계적-연합자의 효력적인 기능 없이는, 자아신분이라는 명칭을 정당화시킬만한 충분한 합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통합되지 않은 마음은, 인간 지위의 의식적 차원들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 만일 의식의 관계적-연합들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였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들은 통제되지 못하고 되는데로 움직이는 정신적 광란 현상과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오로지 물리적 감각에서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인간 마음은 영적 차원들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물리적 마음 종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 철저하게 부족하며, 시간 안에서 조화로운 개인성 합일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이고. 그리고 영원 안에서 생존한 개인성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권역의 안내하는 감각이 없게 된다.

인간 마음은 초물질적인 본질특성들을 일찍부터 현시하기 시작한다; 참되게 반영적인 인간 지성은 운동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생의 행위에 있어서 그토록 서로 다른 저들 개별존재들은, 유전형질에서의 다양한 자질들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영향뿐 아니라, 자아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아버지의 내주 하는 영과의 통일 정도, 하나와 다른 하나간의 정체화구현에서의 척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마음은 이중으로 충성하는 모순을 잘 견디지 못한다. 선과 악 모두를 섬기려고 애쓰는 체험은 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 준다. 최극으로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된 마음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봉헌된 마음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은 합일을 파괴시키며 마음이 분열되면서 종료될지 모른다. 그러나 혼의 생존되는 성격은,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시도나, 고귀한 포부를 포기하거나, 또는 영적 이상에서의 화합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평화는 참된 것이 승리하기를 곳곳하게 주장함으로써 달성되며, 이 승리는 선(善)에서의 강력한 기세로 악(惡)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음 날 그들은 살라미스를 향해 떠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리아 해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출항하였다.

reflective human interpretations. And this fact of self-conscious existence, associated with the reality of his subsequent spiritual experience, constitutes man a potential son of the universe and foreshadows his eventual attainment of the Supreme Unity of the universe.

133:7.9 (1480.1) Neither is the human self merely the sum of the successive states of consciousness. Without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a consciousness sorter and associator there would not exist sufficient unity to warrant the designation of a selfhood. Such an ununified mind could hardly attain conscious levels of human status. If the associations of consciousness were just an accident, the minds of all men would then exhibit the uncontrolled and random associations of certain phases of mental madness.

133:7.10 (1480.2) A human mind, built up solely out of the consciousness of physical sensations, could never attain spiritual levels; this kind of material mind would be utterly lacking in a sense of moral values and would be without a guiding sense of spiritual dominance which is so essential to achieving harmonious personality unity in time, and which is inseparable from personality survival in eternity.

133:7.11 (1480.3) The human mind early begins to manifest qualities which are supermaterial; the truly reflective human intellect is not altogether bound by the limits of time. That individuals so differ in their life performances indicates, not only the varying endowments of heredity and the different influences of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degree of unification with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Father which has been achieved by the self, the measure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one with the other.

133:7.12 (1480.4) The human mind does not well stand the conflict of double allegiance. It is a severe strain on the soul to undergo the experience of an effort to serve both good and evil. The supremely happy and efficiently unified mind is the one wholly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Unresolved conflicts destroy unity and may terminate in mind disruption. But the survival character of a soul is not fostered by attempting to secure peace of mind at any price, by the surrender of noble aspirations, and by the compromise of spiritual ideals; rather is such peace attained by the stalwart assertion of the triumph of that which is true, and this victory is achieved in the overcoming of evil with the potent force of good.

133:7.13 (1480.5) The next day they departed for Salamis, where they embarked for Antioch on the Syrian coast.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에서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이곳에는 그 제국의 총독공관이 있었다. 안디옥은 오십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으며; 그 크기로는 제국에서 세 번째였고, 사악함과 부도덕적인 악명으로는 첫 번째였다. 고노드가 상당히 많은 사업상의 거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시간을 둘이서만 보냈다. 그들은 다프니의 작은 숲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의 말들을 사용하는 이 도시의 모든 곳을 둘러보았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악명 높은 이 처욕의 신전을 방문하였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사양하였다. 그러한 광경은, 이 두 인도인들에게는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상주의적 히브리인에게는 불쾌한 것들이었다.

예수는 자기들의 여행이 끝나게 되고 팔레스타인에 가까이 이를수록, 더 냉정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는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또한 도시도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 선생님께서 왜 안디옥에 그렇게 적은 관심을 현시했는지 많은 질문을 한 끝에, 가니드는 결국 예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가니드는 안디옥에서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하였다. 이 젊은이는 이해가 빠른 학생이었고,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안디옥에서 그의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한 인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불평까지 심해서, 그를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가니드가 이 소식을 듣자, 그는 아버지의 사업장으로 가서 자신의 동족인 그 사람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적당치 않은 자리에 배치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니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이야기해 주었으며, 여러 방면으로 그의 종교적 견해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가니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유대 속담의 인용이 그에게 가장 효력이 있었는데, 그 지혜의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네 손에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일하라.”

그들은 카라반 낙타에 짐을 준비시킨 후에, 시돈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다마스쿠스를 지나, 3일 후에는 사막의 모래 벌판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에 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

제 9 장.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카라반여행은, 이미 여행에 관록이 붙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체험이 되지 못하였다. 가니드는 자신의 선생님이 20마리의 낙타에 짐을 싣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과, 그들 자신의 짐승들을 손수 이끌고 갈 것을 자원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는 명예가 없는 선

133:8.1 (1480.6) Antioch was the capital of the Roman province of Syria, and here the imperial governor had his residence. Antioch had half a million inhabitants; it was the third city of the empire in size and the first in wickedness and flagrant immorality. Gonod had considerable business to transact; so Jesus and Ganid were much by themselves. They visited everything about this polyglot city except the grove of Daphne. Gonod and Ganid visited this notorious shrine of shame, but Jesus declined to accompany them. Such scenes were not so shocking to Indians, but they were repellent to an idealistic Hebrew.

133:8.2 (1480.7) Jesus became sober and reflective as he drew nearer Palestine and the end of their journey. He visited with few people in Antioch; he seldom went about in the city. After much questioning as to why his teacher manifested so little interest in Antioch, Ganid finally induced Jesus to say: “This city is not far from Palestine; maybe I shall come back here sometime.”

133:8.3 (1481.1) Ganid had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in Antioch. This young man had proved himself an apt pupil and already had begun to make practical use of some of Jesus’ teachings. There was a certain Indian connected with his father’s business in Antioch who had become so unpleasant and disgruntled that his dismissal had been considered. When Ganid heard this, he betook himself to his father’s place of business and held a long conference with his fellow countryman. This man felt he had been put at the wrong job. Ganid told him about the Father in heaven and in many ways expanded his views of religion. But of all that Ganid said, the quotation of a Hebrew proverb did the most good, and that word of wisdom was: “Whatso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that with all your might.”

133:8.4 (1481.2) After preparing their luggage for the camel caravan, they passed on down to Sidon and thence over to Damascus, and after three days they made ready for the long trek across the desert sands.

9. IN MESOPOTAMIA

133:9.1 (1481.3) The caravan trip across the desert was not a new experience for these much-traveled men. After Ganid had watched his teacher help with the loading of their twenty camels and observed him volunteer to drive their own animal, he exclaimed, “Teacher, is there anything that you cannot do?” Jesus only smiled, saying, “The teacher surely is not without honor in the eyes of a diligent pupil.” And so they set forth for the ancient

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고대의 도시인 우르로 출발하였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우르의 초기 역사에 매우 관심을 보였으며, 수사의 옛 터전들과 전통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료되었으므로,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그의 조사를 수행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예수를 자신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기를 설복하는 데 기회를 좀 더 가지기 위하여, 그곳에서 3주간을 더 머물렀다.

가니드가 지식, 지혜, 진리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하여 예수와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르에서였다. 그는 히브리 현인(賢人)의 다음과 같은 말에 매우 매료되었다: “지혜가 기본적인 것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탐구한 모든 지식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라. 만일 지혜를 품기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침내 이별의 날이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고, 특히 그 젊은이가 그러하였으나, 그것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체험이었다. 그들은 눈시울을 적시었으나 가슴에서의 용기를 가졌다. 가니드는 자기 선생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다마스쿠스에 오면,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생님과 같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신께서 제게 이야기해주신 그와 당신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선생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오, 하느님을 알도록 도움을 주신 위대한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대답하기를, “평화가 당신들 위에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해변가에 서서, 정박하여 기다리고 있는 배 쪽으로, 작은 배가 그들을 태우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주(主)는 인도에서 온 그의 친구들을 카락스에서 작별하였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 그들은 나중에 나사렛의 예수로 나타난 그 사람이, 그들이 방금 작별을 한 동일한 이 친구—그들의 선생 여호수아—이웃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였다.

인도에서, 가니드는 성장하여 유능한 아버지의 훌륭한 계승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많은 고귀한 진리들을 널리 전하였다. 가니드는 자기가 살아있던 훗날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끝낸 이상한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의 복음과 자신의 유대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유사성을 발견하였지만,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다.

city of Ur.

133:9.2 (1481.4) Jesus was much interested in the early history of Ur, the birthplace of Abraham, and he was equally fascinated with the ruins and traditions of Susa, so much so that Gonod and Ganid extended their stay in these parts three weeks in order to afford Jesus more time to conduct his investigations and also to provide the better opportunity to persuade him to go back to India with them.

133:9.3 (1481.5) It was at Ur that Ganid had a long talk with Jesus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wisdom, and truth. And he was greatly charmed with the saying of the Hebrew wise man: “Wisdom is the principal thing; therefore get wisdom. With all your quest for knowledge, get understanding. Exalt wisdom and she will promote you. She will bring you to honor if you will but embrace her.”

133:9.4 (1481.6) At last the day came for the separation. They were all brave, especially the lad, but it was a trying ordeal. They were tearful of eye but courageous of heart. In bidding his teacher farewell, Ganid said: “Farewell, Teacher, but not forever. When I come again to Damascus, I will look for you. I love you, for I think the Father in heaven must be something like you; at least I know you are much like what you have told me about him. I will remember your teaching, but most of all, I will never forget you.” Said the father, “Farewell to a great teacher, one who has made us better and helped us to know God.” And Jesus replied, “Peace be upon you, and may the blessing of the Father in heaven ever abide with you.” And Jesus stood on the shore and watched as the small boat carried them out to their anchored ship. Thus the Master left his friends from India at Charax, never to see them again in this world; nor were they, in this world, ever to know that the man who later appeared as Jesus of Nazareth was this same friend they had just taken leave of — Joshua their teacher.

133:9.5 (1481.7) In India, Ganid grew up to become an influential man, a worthy successor of his eminent father, and he spread abroad many of the noble truths which he had learned from Jesus, his beloved teacher. Later on in life, when Ganid heard of the strange teacher in Palestine who terminated his career on a cross, though he recogniz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gospel of this Son of Man and the teachings of his Jewish tutor, it never occurred to him that these two were actually the same person.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의 일생에 있어서
여호수아 선생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장
(章)이 끝나게 되었다.

^{133:9.6 (1482.1)} Thus ended that chapter in the life of
the Son of Man which might be termed: *The*
mission of Joshua the teacher.

제 134 편 과도기 시절

⇨ 133

유랜시아 책

13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4 편 과도기 시절

섹션

소개

- 제 1 장. 30살 되던 해 (서기 24년)
 제 2 장. 카스피 지역을 향한 대상 여행
 제 3 장. 우르미아에서의 강연
 제 4 장. 주권—신성한 것과 인간의 것
 제 5 장. 정치적 주권
 제 6 장. 법, 자유, 주권
 제 7 장. 31살 되던 해 (서기 25년)
 제 8 장. 헤르몬 산에서의 체류
 제 9 장. 기다림의 시간

소개

지중해 여행 동안, 예수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 거쳐 갔던 나라들에 관하여 주의 깊게 연구하였으며, 땅에서의 자신의 나머지 일생에 대하여 최종 결정에 도달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참작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제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선생으로서의 필생의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으며; 그는 자기 아버지인 요셉이 소속된 민족의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수행하였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일생에 대한 마지막 장을 꾸미고 마지막 장면을 상연하기에, 전체 로마 세계 중에서 팔레스타인이 최상의 장소임을, 개인적 그리고 인간적 체험을 통하여 발견했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공개적으로 현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계시하는 계획에, 제일 먼저 충분하게 만족

PAPER 134

THE TRANSITION YEA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hirtieth Year (A.D. 24)
2.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3. The Urmia Lectures
4. Sovereignty — Divine and Human
5. Political Sovereignty
6. Law, Liberty, and Sovereignty
7. The Thirty-First Year (A.D. 25)
8. The Sojourn on Mount Hermon
9. The Time of Waiting

INTRODUCTION

134:0.1 (1483.1) DURING the Mediterranean journey Jesus had carefully studied the people he met and the countries through which he passed, and at about this time he reached his final decision as to the remainder of his life on earth. He had fully considered and now finally approved the plan which provided that he be born of Jewish parents in Palestine, and he therefore deliberately returned to Galilee to await the beginning of his lifework as a public teacher of truth; he began to lay plans for a public career in the land of his father Joseph's people, and he did this of his own free will.

134:0.2 (1483.2) Jesus had found out through personal and human experience that Palestine was the best place in all the Roman world wherein to set forth the closing chapters, and to enact the final scenes, of his life on earth. For the first time he became fully satisfied with the program of openly manifesting his true nature and of revealing his divine identity among the Jews and gentiles of his

하게 되었다. 그는 어떤 도움도 없는 아기로서 인간 체험에 들어갔던 동일한 장소에서, 땅에서의 자기 일생을 완결하고 필사자 실존으로서의 자신의 생애를 완성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그의 유란시아 생애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끝내기로 선택하였다.

제 1 장. 30살 되던 해 (서기 24년)

카락스에서 고노드와 가니드를 떠나보낸 후에(서기 23년 12월), 예수는 우르를 경유하여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막의 카라반과 합세하였다. 다마스쿠스로부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는, 단지 몇 시간 동안 가버나움에 들렀을 뿐이며, 그곳에서 세베대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 때 그는 동생 야고보를 만났으며, 야고보는 세베대의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그를 대신하여 일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와 있었다. 예수는 야고보와 유다(역시 우연히 가버나움에 왔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요한 세베대가 자기를 대신하여 사 놓았던 작은 집을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준 다음, 나사렛으로 갔다.

지중해 여행을 마쳤을 때, 예수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이 특별한 여행 도중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이러한 여행을 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었다고 항상 믿었다. 예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확인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오해들을 드러내놓고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사렛에 머물던 몇 주간 동안, 예수는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동생 요셉과 수리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마리아와 룯에게 쏟았다. 룯은 그 때 거의 15살이었는데, 그녀가 처녀가 된 이래로 예수가 그녀와 긴 대화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몬과 유다는 한 동안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의 동의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만행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이들 사건을 미루어 오고 있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를 가장(家長)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였지만, 막상 결혼이 임박해지자 예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는 서기 24년 3월 초순에 두 쌍의 결혼식을 올렸다.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모두 결혼하게 되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룯만이 마리아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다.

예수는 가족의 개별 구성원들과 만날 때에는

native Palestine. He definitely decided to finish his life on earth and to complete his career of mortal existence in the same land in which he entered the human experience as a helpless babe. His Urantia career began among the Jews in Palestine, and he chose to terminate his life in Palestine and among the Jews.

1. THE THIRTIETH YEAR (A.D. 24)

134:1.1 (1483.3) After taking leave of Gonod and Ganid at Charax (in December of A.D. 23), Jesus returned by way of Ur to Babylon, where he joined a desert caravan that was on its way to Damascus. From Damascus he went to Nazareth, stopping only a few hours at Capernaum, where he paused to call on Zebedee's family. There he met his brother James, who had sometime previously come over to work in his place in Zebedee's boatshop. After talking with James and Jude (who also chanced to be in Capernaum) and after turning over to his brother James the little house which John Zebedee had managed to buy, Jesus went on to Nazareth.

134:1.2 (1483.4) At the end of his Mediterranean journey Jesus had received sufficient money to meet his living expenses almost up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But aside from Zebedee of Capernaum and the people whom he met on this extraordinary trip, the world never knew that he made this journey. His family always believed that he spent this time in study at Alexandria. Jesus never confirmed these beliefs, neither did he make open denial of such misunderstandings.

134:1.3 (1483.5) During his stay of a few weeks at Nazareth, Jesus visited with his family and friends, spent some time at the repair shop with his brother Joseph, but devoted most of his attention to Mary and Ruth. Ruth was then nearly fifteen years old, and this was Jesus' first opportunity to have long talks with her since she had become a young woman.

134:1.4 (1484.1) Both Simon and Jude had for some time wanted to get married, but they had disliked to do this without Jesus' consent; accordingly they had postponed these events, hoping for their eldest brother's return. Though they all regarded James as the head of the family in most matters, when it came to getting married, they wanted the blessing of Jesus. So Simon and Jude were married at a double wedding in early March of this year, A.D. 24. All the older children were now married; only Ruth, the youngest, remained at home with Mary.

134:1.5 (1484.2) Jesus visited with the individual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였지만,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특히 마리아는 자기 만아들의 정상이 아닌 이상한 태도 때문에 우울하였다.

예수가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이 도시를 지나가던 큰 카라반의 지휘-안내자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예수가 외국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는 이 여행으로 인하여 일 년 동안 집을 비워야 하였고, 동생들이 모두 결혼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뭇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최근에 야고보에게 넘겨주었던 가버나움 집으로 어머니와 뭇이 이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예수가 카라반들과 떠나간 며칠 뒤에, 마리아와 뭇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예수가 제공한 집에서 살았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사렛의 고향집으로 들어왔다.

이 해는 사람의 아들의 내적 체험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해들 중의 하나였으며; 그의 인간 마음과 내주하는 조절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진보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들을 위하여, 조절자는 예수의 생각을 재조직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예수의 개인성은 세상을 향한 자기 태도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기간들은 양단의 중간 시기, 인간으로 나타난 하느님으로서의 일생을 시작하는, 하느님으로 나타난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완성시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 단계였다.

제 2 장. 카스피 지역을 향한 대상 여행

예수가 나사렛을 출발하여 카라반들과 함께 카스피 해(海)로 여행을 떠난 것은 서기 24년 4월 1일의 일이었다. 예수가 지휘-안내자로서 합세하였던 그 카라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다마스쿠스와 우르미아 호수를 경유하고 아시리아, 메디아, 파르티아를 거쳐 남부 카스피 지역으로 갔다. 이 여행에서 그가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카라반여행은 탐험과 개인적 사명활동의 또 다른 모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카라반 일행들—승객들, 안내원들, 낙타부리는 자들—과 함께 재미있는 체험을 하였다. 카라반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살고 있었던 많은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카라반을 이끄는 비범한 지휘-안내자로 보였던 예수와 접촉한 결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명활동하였던 이 기회들을 포착하였던 사람들 전부가 덕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대

members of his family quite normally and naturally, but when they were all together, he had so little to say that they remarked about it among themselves. Mary especially was disconcerted by this unusually peculiar behavior of her first-born son.

134:1.6 (1484.3) About the time Jesus was preparing to leave Nazareth, the conductor of a large caravan which was passing through the city was taken violently ill, and Jesus, being a linguist, volunteered to take his place. Since this trip would necessitate his absence for a year, and inasmuch as all his brothers were married and his mother was living at home with Ruth, Jesus called a family conference at which he proposed that his mother and Ruth go to Capernaum to live in the home which he had so recently given to James. Accordingly, a few days after Jesus left with the caravan, Mary and Ruth moved to Capernaum, where they lived for the rest of Mary's life in the home that Jesus had provided. Joseph and his family moved into the old Nazareth home.

134:1.7 (1484.4) This was one of the more unusual years in the inner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great progress was made in effecting working harmony between his human mind and the indwelling Adjuster. The Adjuster had been actively engaged in reorganizing the thinking and in rehearsing the mind for the great events which were in the not then distant future. The personality of Jesus was preparing for his great change in attitude toward the world. These were the in-between times, the transition stage of that being who began life as God appearing as man, and who was now making ready to complete his earth career as man appearing as God.

2.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134:2.1 (1484.5) It was the first of April, A.D. 24, when Jesus left Nazareth on the caravan trip to the Caspian Sea region. The caravan which Jesus joined as its conductor was going from Jerusalem by way of Damascus and Lake Urmia through Assyria, Media, and Parthia to the southeastern Caspian Sea region. It was a full year before he returned from this journey.

134:2.2 (1484.6) For Jesus this caravan trip was another adventure of exploration and personal ministry. He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ith his caravan family — passengers, guards, and camel drivers. Scores of men, women, and children residing along the route followed by the caravan lived richer lives as a result of their contact with Jesus, to them, the extraordinary conductor of a commonplace caravan. Not all who enjoyed these occasions of his personal ministry profited thereby, but the vast majority of those who met and talked

다수는 더욱 좋은 여생(餘生)을 누렸다.

그의 모든 여행 중에서 이 카스피 해의 여행은 예수로 하여금 동방에 가장 가깝게 가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가 극동(極東)지방 사람들을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적색인종을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살았던 모든 종족들과 친밀하고도 개인적 접촉을 가졌다. 그는 이러한 여러 다른 인종들은 물론 혼합된 인종들 각각에게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을 똑같이 베풀었으며, 그들 모두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가져다 준, 살아있는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 극서(極西)지방에서 온 유럽인들이나 극동지방에서 온 아시아인들은,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의 말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들 가운데에서 그토록 우아하게 함께 살았던 사랑 넘치는 봉사와 영적 사명활동에 의하여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카라반 여행은 모든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에피소드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 해 동안에 자기에게 맡겨진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카라반 무리들을 이루고 있던 여행자들의 안전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관리자 자격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신실하게, 능률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자신의 복합적인 의무들을 잘 이행하였다.

카스피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우르미아 호수에서 카라반 지도자의 자리를 사직하고 2주가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나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카라반 대열에 승객으로 합세하여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그 낙타들의 주인은 그에게 그들의 봉사에 남을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카라반들과 함께 여행하여 서기 25년 4월 1일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는 더 이상 나사렛을 자기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버나움이 예수와 야고보와 마리아와 루스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세베대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았다.

with him were made better for the remainder of their natural lives.

134:2.3 (1484.7) Of all his world travels this Caspian Sea trip carried Jesus nearest to the Orient and enabled him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ar-Eastern peoples. He made intimate and personal contact with every one of the surviving races of Urantia excepting the red. He equally enjoyed his personal ministry to each of these varied races and blended peoples, and all of them were receptive to the living truth which he brought them. The Europeans from the Far West and the Asiatics from the Far East alike gave attention to his words of hope and eternal life and were equally influenced by the life of loving service and spiritual ministry which he so graciously lived among them.

134:2.4 (1485.1) The caravan trip was successful in every way. This was a most interesting episode in the human life of Jesus, for he functioned during this year in an executive capacity, being responsible for the material intrusted to his charge and for the safe conduct of the travelers making up the caravan party. And he most faithfully, efficiently, and wisely discharged his multiple duties.

134:2.5 (1485.2) On the return from the Caspian region, Jesus gave up the direction of the caravan at Lake Urmia, where he tarried for slightly over two weeks. He returned as a passenger with a later caravan to Damascus, where the owners of the camels besought him to remain in their service. Declining this offer, he journeyed on with the caravan train to Capernaum, arriving the first of April, A.D. 25. No longer did he regard Nazareth as his home. Capernaum had become the home of Jesus, James, Mary, and Ruth. But Jesus never again lived with his family; when in Capernaum he made his home with the Zebedees.

제 3 장. 우르미아에서의 강연

카스피 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휴식과 원기회복을 취하기 위하여 우르미아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페르시아 도시인 우르미아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우르미아 근처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 위에 하나의 큰 건물—원형극장식의 강연 장소—가 “종교의 영”에게 바쳐져 있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종교 철학을 다루는 사원(寺院)이었다.

이 종교 사원은 우르미아의 시민인 부유한 상인과 그의 세 아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심보이톤이었으며, 그의 조상들 중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

3. THE URMIA LECTURES

134:3.1 (1485.3) On the way to the Caspian Sea, Jesus had stopped several days for rest and recuperation at the old Persian city of Urmia on the western shores of Lake Urmia. On the largest of a group of islands situated a short distance offshore near Urmia was located a large building — a lecture amphitheater — dedicated to the “spirit of religion.” This structure was really a temple of the philosophy of religions.

134:3.2 (1485.4) This temple of religion had been built by a wealthy merchant citizen of Urmia and his three sons. This man was Cymboyton, and he numbered among his ancestors many diverse peoples.

이 종교학교의 강의들과 토의들은 주 중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오후 강의들은 3시에 시작하였으며, 저녁 토론회는 8시에 열렸다. 심보이톤 또는 그의 세 아들들 중의 하나가 이러한 강의나 토의나 토론들의 사회를 항상 맡았다. 이렇게 독특한 종교 학교를 설립한 그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결코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예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고, 그가 우르미아를 떠나기 전에, 심보이톤은 예수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에 그들과 2주간 동안 머물러 있도록 조치하였고, “사람들의 형제신분”라는 주제로 24번의 강의를 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특히 그의 강의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관한 질문과 토의 그리고 토론을 하는 12번의 저녁 강의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예정에 따라 예수는 돌아가는 길에 우르미아에 들려 계획된 강의들을 하였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하여, 이 강의들과 토의들에서처럼, 그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실제 안에서 이러한 강의들은 “하느님의 왕국”과 “사람들의 왕국들”에 관한 것이었다.

30개가 넘는 종교들과 종교적 예배종파들이 종교들의 철학을 위한 이 사원에서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선생들은 그들 각자의 종교적 집단들에 의해 뽑혔고, 지원을 받았으며,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이 무렵에는 75명의 선생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였고, 그들은 각 집마다 12명이 함께 사는 사택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집단들의 구성원은 새로 달이 바뀔 때마다 제비뽑기에 의해 바뀌었다. 편협함, 논쟁적인 영, 또는 집단을 순조롭게 운영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떤 기질이든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 즉시 즉각적으로 해직되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예식을 거치지 않고 해직되었고, 기다리고 있던 그의 대체자가 곧 그의 자리를 임명되었다.

여러 종류의 종교들을 대표한 이러한 선생들은 이 일생과 다음 일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각자의 종교들이 서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원칙만이 적용되었다—각 선생은 하느님—어느 정도 최극신(神)을 포함하는—을 인정하는 종교를 대표해야만 하였다. 교수진 가운데에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도 대표하지 않는 독립된 5명의 선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러한 독립된 선생으로 그들 앞에서게 되었다.

[우리 중도자들이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들의 요지를 처음으로 준비하였을 때, 유란시

134:3.3 (1485.5) The lectures and discussions in this school of religion began at ten o'clock every morning in the week. The afternoon sessions started at three o'clock, and the evening debates opened at eight o'clock. Cymboyton or one of his three sons always presided at these sessions of teaching, discussion, and debate. The founder of this unique school of religions lived and died without ever revealing his personal religious beliefs.

134:3.4 (1485.6) On several occasions Jesus participated in these discussions, and before he left Urmia, Cymboyton arranged with Jesus to sojourn with them for two weeks on his return trip and give twenty-four lectures on “The Brotherhood of Men,” and to conduct twelve evening sessions of questions, discussions, and debates on his lectures in particular and on the brotherhood of men in general.

134:3.5 (1485.7) In accordance with this arrangement, Jesus stopped off on the return trip and delivered these lectures. This was the most systematic and formal of all the Master's teaching on Urantia. Never before or after did he say so much on one subject as was contained in these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he brotherhood of men. In reality these lectures were on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s of Men.”

134:3.6 (1486.1) More than thirty religions and religious cults were represented on the faculty of this temple of religious philosophy. These teachers were chosen, supported, and fully accredited by their respective religious groups. At this time there were about seventy-five teachers on the faculty, and they lived in cottages each accommodating about a dozen persons. Every new moon these groups were changed by the casting of lots. Intolerance, a contentious spirit, or any other disposition to interfere with the smooth running of the community would bring about the prompt and summary dismissal of the offending teacher. He would be unceremoniously dismissed, and his alternate in waiting would be immediately installed in his place.

134:3.7 (1486.2) These teachers of the various religions made a great effort to show how similar their religions were in regard to the fundamental things of this life and the next. There was but one doctrine which had to be accepted in order to gain a seat on this faculty — every teacher must represent a religion which recognized God — some sort of supreme Deity. There were five independent teachers on the faculty who did not represent any organized religion, and it was as such an independent teacher that Jesus appeared before them.

134:3.8 (1486.3) [When we, the midwayers, first prepared the summary of Jesus' teachings at

아 계시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하여 교회의 세라핌천사와 진보의 세라핌천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 20세기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교와 인간 정부들의 상황이 예수 당시에 퍼져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왕국과 사람의 왕국들에 관한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을 20세기에 실존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기능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들 행성 정부의 이들 두 세라핌천사 집단 모두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서술문(敍述文)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議長)이 우리들 전체 인원 중에서 임명된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맞도록 우르미아에서의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2차 중도자 세 명은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이 합당해 지도록 완성하였고, 그의 선언을 우리가 지금-현재의 세계 조건에 적용해 보려는 바에 따라 다시 진술했으며, 이후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의 편지를 받은 그대로 지금, 이들 서술문을 발표한다.]

제 4 장. 주권—신성한 것과 인간의 것

사람의 형제신분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기초를 둔다. 하느님의 가족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다—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 하느님은 그의 자녀들 모두를 신성하게 사랑한다.

하늘의 왕국, 신성한 정부는 신성한 주권—하느님은 영(靈)이시다—의 사실에 기초를 둔다. 하느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왕국은 영적(靈的)이다. 하늘의 왕국은 물질적도 아니고 또한 단순히 지적인 것도 아니다; 하느님과 사람사이의 영적 관계이다.

만약 다른 종교들이 아버지 하느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모든 종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 오직 하나의 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보다 우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신자들을 겁 없이 박해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평화—형제신분—는 모든 종교들이 교단의 모든 권한을 자진해서 완벽하게 버리고 또한 영적 통치권에 대한 모든 관념을 전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느님 한 분만이 영적 통치자이시다.

모든 종교들이 모든 종교적 주권(主權)을 초인간적인 하느님 자신에게 맡기기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전쟁 없이 종교들 사이에 평등(종교적 해방)을 유지할 수 없다.

Urmia, there arose a disagreement between the seraphim of the churches and the seraphim of progress as to the wisdom of including these teachings in the Urantia Revelation. Condit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prevailing in both religion and human governments, are so different from those prevailing in Jesus' day that it was indeed difficult to adapt the Master's teachings at Urmia to the problem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s of men as these world functions are existent in the twentieth century. We were never able to formulate a statement of the Master's teachings which was acceptable to both groups of these seraphim of planetary government. Finally, the Melchizedek chairman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appointed a commission of three of our number to prepare our view of the Master's Urmia teachings as adapted to twentieth-century religious and political conditions on Urantia. Accordingly, we three secondary midwayers completed such an adaptation of Jesus' teachings, restating his pronouncements as we would apply them to present-day world conditions, and we now present these statements as they stand after having been edited by the Melchizedek chairman of the revelatory commission.]

4. SOVEREIGNTY — DIVINE AND HUMAN

134:4.1 (1486.4) The brotherhood of men is founded on the fatherhood of God. The family of God is derived from the love of God — God is love. God the Father divinely loves his children, all of them.

134:4.2 (1486.5) The kingdom of heaven, the divine government, is founded on the fact of divine sovereignty — God is spirit. Since God is spirit, this kingdom is spiritual. The kingdom of heaven is neither material nor merely intellectual; it is a spiritu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134:4.3 (1486.6) If different religions recognize the spirit sovereignty of God the Father, then will all such religions remain at peace. Only when one religion assumes that it is in some way superior to all others, and that it possesses exclusive authority over other religions, will such a religion presume to be intolerant of other religions or dare to persecute other religious believers.

134:4.4 (1487.1) Religious peace — brotherhood — can never exist unless all religions are willing to completely divest themselves of all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fully surrender all concept of spiritual sovereignty. God alone is spirit sovereign.

134:4.5 (1487.2) You cannot have equality among religions (religious liberty) without having religious wars unless all religions consent to the transfer of all religious sovereignty to some superhuman level, to God himself.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은 종교적 화합(반드시 확일적일 필요는 없지만)을 창조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 신자들로 구성된 모든 종교는 성직의 권한—종교적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하느님은 자신의 영 그 자체의 한 단편을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한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늘의 왕국은 신분이나 특권계급이나 사회 차원이나 경제 집단들로부터 자유롭다.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 아버지의 영적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하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대신, 종교인들 사이에서 불화와 비난이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스스로를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그들 위에 그들을 넘어서는 어떤 초(超)주권, 어떤 권한에 종속된 것으로 스스로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을 지배하기 위한 힘과 권한을 갖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초(超)주권의 어떤 전반적-통제의 영향력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평등의 개념이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우르미아 종교인들은 종교적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신념들을 전부 다 내 던졌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스럽고 고요하게 함께 살아갔다. 영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느님을 믿었다; 사회적으로는, 충만하고 도전할 수 없는 권한을 그들의 주관하는 우두머리—심보이톤—에게 맡겼다. 그들 모두는, 동료 선생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편애(偏愛)와 선택된 백성 그리고 종교적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모든 종교적 집단들이 자유의지로 포기하기 전에는, 영구한 종교적 평화를 유란시아에서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느님이 최극의 뜻이 될 때에만, 사람들은 종교적 형제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평화 속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제 5 장. 정치적 주권

[하느님의 주권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이 진리인—오직 그 후에 세상 종교들 중의 하나로 출현된 그에 관한 종교로 인하여 복잡해졌을 뿐임—반면에, 정치적 주권에 관하여 그가 제시한 것들은 지난 1,9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국가 살림살이의 정치적 진화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복잡하여졌다. 예수의 시절에는 단지 두 개의 세계적인 강국들—서방의 로마제국과 동방의 한 제국—이 있었고, 이 두 제국은 파르티아 왕국과 카스피 그리고

134:4.6 (1487.3)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will create religious unity (not necessarily uniformity) because any and all religious groups composed of such religious believers will be free from all notion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 religious sovereignty.

134:4.7 (1487.4) God is spirit, and God gives a fragment of his spirit self to dwell in the heart of man. Spiritually, all men are equal. The kingdom of heaven is free from castes, classes, social levels, and economic groups. You are all brethren.

134:4.8 (1487.5) But the moment you lose sight of the spirit sovereignty of God the Father, some one religion will begin to assert its superiority over other religions; and then, instead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there will start dissensions, recriminations, even religious wars, at least wars among religionists.

134:4.9 (1487.6) Freewill beings who regard themselves as equals, unless they mutually acknowledge themselves as subject to some supersovereignty, some authority over and above themselves, sooner or later are tempted to try out their ability to gain power and authority over other persons and groups. The concept of equality never brings peace except in the mutual recognition of some overcontrolling influence of supersovereignty.

134:4.10 (1487.7) The Urmia religionists lived together in comparative peace and tranquillity because they had fully surrendered all their notions of religious sovereignty. Spiritually, they all believed in a sovereign God; socially, full and unchallengeable authority rested in their presiding head — Cymboyton. They well knew what would happen to any teacher who assumed to lord it over his fellow teachers. There can be no lasting religious peace on Urantia until all religious groups freely surrender all their notions of divine favor, chosen people, and religious sovereignty. Only when God the Father becomes supreme will men become religious brothers and live together in religious peace on earth.

5. POLITICAL SOVEREIGNTY

134:5.1 (1487.8) [While the Master's teaching concerning the sovereignty of God is a truth — only complicated by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the religion about him among the world's religions — his presentations concerning political sovereignty are vastly complicated by the political evolution of nation life during the last nineteen hundred years and more. In the times of Jesus there were only two great world powers — the

투루키스탄 지역의 땅들이 사이에 있음으로써 매우 멀리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 속에서는 정치적 주권에 관한 우르미아에서의 주(主)의 가르침의 요지와는 많이 동떨어지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있어서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따른 특별히 결정적인 단계에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르침의 의미를 서술해 보려고 동시에 시도하였다.]

국가들이 무제한적 국가 주권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한, 유란시아에서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거주하는 세계에는 단지 두 가지 차원의 상대적 주권만이 있다: 개별 필사자의 영적 자유의지와 전체로서의 인류의 집합적 주권이다. 개별 인간 존재의 차원과 인류 전체의 차원 사이에서는, 집단을 이루는 것과 관계적-연합을 이루는 것, 모두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그들이—사람과 인류—개별존재와 행성의 총합된 복지와 안녕 그리고 진보를 향상(向上)시키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종교 교사들은, 하느님의 영적 주권이 중재를 이루고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하는 모든 영적 충성심에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시민 정부의 통치자들은, 사람의 왕국들을 통치하는 지고자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고자들의 이 통치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어떤 사람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고자들, 정치적 진화의 전반적-통제자들의 통치는 가장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숫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도록 설계된 하나의 법칙이다.

주권(主權)은 힘이며 그것은 조직에 의하여 자라난다. 이러한 정치적 힘의 조직들의 성장은 유익하고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가장 넓은 부분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정치적 조직들의 성장은, 초기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힘—가족(家族)—의 조직과 최종적인 정치적 성장의 달성—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에 의한, 모든 인류를 위한—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 단계마다 문제를 만들어낸다.

가족 집단 속에 있는 부모의 힘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 주권은 진보를 이루어 가족들 간의 혈연관계인 씨족으로 뭉쳐지고, 그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부족(部族) 단위들—혈연관계를 초월한 정치적 집단들—로 연합된다. 그런 다음에는,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정복의 수단을 통하여 종족들이 하나의 국가로 연관되고, 국가들은 때때로 제국으로 연관되어지기도 한다.

주권이 소규모의 집단에서 대규모의 집단들

Roman Empire in the West and the Han Empire in the East — and these were widely separated by the Parthian kingdom and other intervening lands of the Caspian and Turkestan regions. We have, therefore, in the following presentation departed more widely from the substance of the Master's teachings at Urmia concerning political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attempting to depict the import of such teachings as they are applicable to the peculiarly critical stage of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in the twentieth century after Christ.]

134:5.2 (1487.9) War on Urantia will never end so long as nations cling to the illusive notions of unlimited national sovereignty. There are only two levels of relative sovereignty on an inhabited world: the spiritual free will of the individual mortal and the collective sovereignty of mankind as a whole. Between the level of the individual human being and the level of the total of mankind, all groupings and associations are relative, transitory, and of value only in so far as they enhance the welfare, well-being, and progress of the individual and the planetary grand total — man and mankind.

134:5.3 (1488.1) Religious teachers must always remember that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God overrides all intervening and intermediate spiritual loyalties. Someday civil rulers will learn that the Most Highs rule in the kingdoms of men.

134:5.4 (1488.2) This rule of the Most Highs in the kingdoms of men is not for the especial benefit of any especially favored group of mortal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chosen people.” The rule of the Most Highs, the overcontrollers of political evolution, is a rule designed to foster the greatest good to the greatest number of *all* men and for the greatest length of time.

134:5.5 (1488.3) Sovereignty is power and it grows by organization. This growth of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is good and proper, for it tends to encompass ever-widening segments of the total of mankind. But this same growth of political organizations creates a problem at every intervening stage between the initial and natur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ower — the family — and the final consummation of political growth — the government of all mankind, by all mankind, and for all mankind.

134:5.6 (1488.4) Starting out with parental power in the family group, political sovereignty evolves by organization as families overlap into consanguineous clans which become united, for various reasons, into tribal units — superconsanguineous political groupings. And then, by trade, commerce, and conquest, tribes become unified as a nation, while nations themselves sometimes become unified by empire.

134:5.7 (1488.5) As sovereignty passes from smaller

로 옮겨져 가면서, 전쟁은 점점 줄어든다. 작은 국가들 간의 작은 전쟁들이 줄어드는 반면, 그 국가들이 휘두르는 주권이 점점 더 커갈수록 더 큰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윽고, 모든 세상이 탐험되어지고 차지되면, 국가들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서 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주권을 소유한 나라들의 국경이 서로 이웃하게 되면, 단지 바다만이 그들을 나누어 놓게 되면, 그 때 세계적인 투쟁인 큰 전쟁이 일어날 무대가 꾸며질 것이다. 소위 주권을 가진 국가들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사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으로부터 전체 인류로 확대되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중간에 게재하는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는 끈질긴-저항 안에 들어있다. 가족들은 경우에 따라 자기들의 씨족에게 도전해 왔으며, 반면에 씨족들과 부족들은 지역 국가의 주권을 종종 타도하였다. 각각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적 주권의 진화는, 정치적 조직 속에서 전에 있었던 발전들의 “발판이 되는 단계들”에 의해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인간 충성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이 종족을 초월한—지역적 국가—진화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지역적 주정부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충성심(애국심)이 모든 인류의 정부의 진화적인 발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개별존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족과 더 큰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씨족들이, 자아-결정주의에서의 포기로부터 창출된다. 자아-결정주의가 소규모에서 좀 더 큰 정치적 집단으로 옮겨간 이러한 진보적인 양도는 동방에서는, 명 왕조와 몽고 왕조가 설립된 이후로 대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진행되었다. 서방에서는 세계 대전 말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이 진행되었는데, 그 후에는 유럽의 수많은 작은 집단들이 침몰되었던 정치적 주권을 재정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 경향이 불행스런 역행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거꾸로 되었다.

유란시아는,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이 지능적이고 전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의 힘을 사람의 형제신분—인류의 정부—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국제주의—국가들의 연맹—은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 없다. 국가들의 세계적인 연관은 소규모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세계전쟁들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 4개, 또는 5개의 초강대국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 세계적인 강국들 중의 하나가 연맹에서 탈퇴하여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국가적 주권이라는 망상적 병균에 감염되

groups to larger groups, wars are lessened. That is, minor wars between smaller nations are lessened, but the potential for greater wars is increased as the nations wielding sovereignty become larger and larger. Presently, when all the world has been explored and occupied, when nations are few, strong, and powerful, when these great and supposedly sovereign nations come to touch borders, when only oceans separate them, then will the stage be set for major wars, world-wide conflicts. So-called sovereign nations cannot rub elbows without generating conflicts and eventuating wars.

134:5.8 (1488.6) The difficult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from the family to all mankind, lies in the inertia-resistance exhibited on all intervening levels. Families have, on occasion, defied their clan, while clans and tribes have often been subversive of the sovereignty of the territorial state. Each new and forward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is (and has always been) embarrassed and hampered by the “scaffolding stages” of the previous developments in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is is true because human loyalties, once mobilized, are hard to change. The same loyalty which makes possible the evolution of the tribe, makes difficult the evolution of the supertribe — the territorial state. And the same loyalty (patriotism) which makes possible the evolu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vastly complicates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of all mankind.

134:5.9 (1488.7) Political sovereignty is created out of the surrender of self-determinism, first by the individual within the family and then by the families and clans in relation to the tribe and larger groupings. This progressive transfer of self-determination from the smaller to ever larger political organizations has generally proceeded unabated in the Eas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g and the Mogul dynasties. In the West it obtained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right on down to the end of the World War, when an unfortunate retrograde movement temporarily reversed this normal trend by re-establishing the submerged political sovereignty of numerous small groups in Europe.

134:5.10 (1489.1) Urantia will not enjoy lasting peace until the so-called sovereign nations intelligently and fully surrender their sovereign powers into the hands of the brotherhood of men — mankind government. Internationalism — Leagues of Nations — can never bring permanent peace to mankind. World-wide confederations of nations will effectively prevent minor wars and acceptably control the smaller nations, but they will not prevent world wars nor control the three, four, or five most powerful governments. In the face of real conflicts, one of these world powers will withdraw from the League and declare war. You cannot

어 있는 동안에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국제경찰의 기세는 많은 작은 전쟁들을 미리 방지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부들 사이의 갈등인 큰 전쟁을 막는 것에는 그렇게 큰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주권을 갖는 국가들(강대국)의 숫자가 줄어 들어감에 따라, 인류 전체의 정부에 대한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한다. 단지 소수의 (거대한) 강대국들만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때, 그들은 국가(제국)의 최극위를 위하여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투쟁을 선포해야만 하던가, 아니면 주권에서의 일정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온 인류에 대한 실제 주권의 시작으로써 작용될 초국가적인 세력의 본질적인 토대를 창립하여야만 한다.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 모두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세력을 온 인류의 대표 정부에게 양보하기 전까지는 유란시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세상의 국민들과 함께 태생적이다. 유란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창조하였을 때, 그들은 그러한 정부로 하여금 주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힘이 세상의 육지, 공중 그리고 해상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그러한 때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한 뜻이 만연할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19세기 와 20세기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48개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연방은 오랫동안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연방정부에게 양도하였으며, 전쟁을 중재함으로써 자아-결정권이라는 망상을 모두 포기하였다. 각 주(州)정부는 자체적인 내부의 관련사들을 규제하는 반면, 외국과의 관계, 세관, 이민, 군사 관련사, 주정부 간의 통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들은 시민권의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주권이 어떤 문제로든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에만, 그 48개의 주들은 전쟁으로 인한 참화(慘禍)를 겪게 된다.

주권과 자아-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궤변들을 포기한, 이 48개의 주(州)들은 주들 간의 평화와 평정을 누린다. 그와 같이 유란시아의 국가들도 그들 각자의 주권들을 범세계적인 정부—사람들의 형제애의 주권—의 손에 양도할 때,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국가 안에서는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만큼 힘을 갖게 되는데, 마치 작은 로드아일랜드 주가 인구 많은 뉴욕 주나 혹은 가장 큰 텍사스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회에 두 명의 상원의원을 보내는 것과 같다.

prevent nations going to war as long as they remain infected with the delusional virus of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ism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n international police force will prevent many minor wars, but it will not be effective in preventing major wars, conflicts between the great military governments of earth.

134:5.11 (1489.2) As the number of truly sovereign nations (great powers) decreases, so do both opportunity and need for mankind government increase. When there are only a few really sovereign (great) powers, either they must embark on the life and death struggle for national (imperial) supremacy, or else, by voluntary surrender of certain prerogatives of sovereignty, they must create the essential nucleus of supernational power which will serve as the beginning of the real sovereignty of all mankind.

134:5.12 (1489.3) Peace will not come to Urantia until every so-called sovereign nation surrenders its power to make war into the hands of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all mankind. Political sovereignty is innate with the peoples of the world. When all the peoples of Urantia create a world government, they have the right and the power to make such a government SOVEREIGN; and when such a representative or democratic world power controls the world's land, air, and naval forces,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can prevail — but not until then.

134:5.13 (1489.4) To use an important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illustration: The forty-eight states of the American Federal Union have long enjoyed peace. They have no more wars among themselves. They have surrendered their sovereignty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rough the arbitrament of war, they have abandoned all claims to the delusions of self-determination. While each state regulates its internal affairs, it is not concerned with foreign relations, tariffs, immigration, military affairs, or interstate commerce. Neither do the individual states concern themselves with matters of citizenship. The forty-eight states suffer the ravages of war only when the federal government's sovereignty is in some way jeopardized.

134:5.14 (1489.5) These forty-eight states, having abandoned the twin sophistries of sovereignty and self-determination, enjoy interstate peace and tranquillity. So will the nations of Urantia begin to enjoy peace when they freely surrender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into the hands of a global government — the sovereignty of the brotherhood of men. In this world state the small nations will be as powerful as the great, even as the small state of Rhode Island has its two senators in the American Congress just the same as the populous state of New York or the large state of Texas.

이러한 48개 주들의 한정된 (주정부의) 주권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적) 주권은 원조(元祖)가 되는 13개의 주에 의해 그들 자신의 이익과 주민(州民)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워졌다. 언젠가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인 인류의 행정 정부가 비슷한 형태로 세워질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정부들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고안되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주권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끝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다른 주권들은 가치에 있어서 상대적이고, 의미에 있어서 중간적이고, 지위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쟁은 그들이 거의 인종적 자살 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잔인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인류 전체의 정부를 세우고 영원한 평화를 즐기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선한 뜻—전-세계적 선한 뜻—에 의한 평정을 토대로 번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계 전쟁들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 동맹들이 깨어져야만 할 것인가?

제 6 장. 법, 자유, 주권

만약에 한 사람이 자유—해방—를 열망한다면,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기와 똑같은 자유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해방을—사랑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의 집단들은, 각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동시에 그의 동료 필사자들 모두에게도 같은 양의 자유를 보장해줄, 법과 규칙 그리고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은 절대적인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 상대적인 속성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된 사실이다. 자유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성취 가능한 문명의 선물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형제애를 실현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만, 인간의 행복이나 효율성에 관계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정부를 필요로 한다.

세상의 정치적 주권이 나뉘어 있고 옳지 않게 국가-주정부의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한,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들—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반목하는—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그들이 각자의 주권을 영국 연방에게 위임하기 전까지 항상 서로 싸워왔다.

134:5.15 (1490.1) The limited (state) sovereignty of these forty-eight states was created by men and for men. The superstat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American Federal Union was created by the original thirteen of these states for thei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men. Sometime the supernational sovereignty of the planetary government of mankind will be similarly created by nations for their own benefit and for the benefit of all men.

134:5.16 (1490.2) Citizens are not born for the benefit of governments; governments are organizations created and devised for the benefit of men. There can be no end to the evolution of political sovereignty short of the appearance of the government of the sovereignty of all men. All other sovereignties are relative in value, intermediate in meaning, and subordinate in status.

134:5.17 (1490.3) With scientific progress, wars are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devastating until they become almost racially suicidal. How many world wars must be fought and how many leagues of nations must fail before men will be willing to establish the government of mankind and begin to enjoy the blessings of permanent peace and thrive on the tranquillity of good will — world-wide good will — among men?

6. LAW, LIBERTY, AND SOVEREIGNTY

134:6.1 (1490.4) If one man craves freedom — liberty — he must remember that *all* other men long for the same freedom. Groups of such liberty-loving mortals cannot live together in peace without becoming subservient to such laws, rules, and regulations as will grant each person the same degree of freedom while at the same time safeguarding an equal degree of freedom for all of his fellow mortals. If one man is to be absolutely free, then another must become an absolute slave. And the relative nature of freedom is tru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Freedom is the gift of civilization made possible by the enforcement of LAW.

134:6.2 (1490.5) Religion makes it spiritually possible to realize the brotherhood of men, but it will require mankind government to regulat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such a goal of human happiness and efficiency.

134:6.3 (1490.6) There shall be wars and rumors of wars —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 just as long as the world's political sovereignty is divided up and unjustly held by a group of nation-states. England, Scotland, and Wales were always fighting each other until they gave up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reposing them in the United Kingdom.

또 다른 세계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주권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연관정부들 구성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작은 전쟁, 약소국가들 사이의 전쟁들을 예방하는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쟁은 인류 전체의 정부가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구 전체의 통제권이 세계적인 전쟁들을 막게 될 것이다—다른 아무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48개의 미국의 독립된 주들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이들 48개 주들의 시민들 중에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의 국가들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국적과 인종들도 섞여 있다. 이 미국인들은 전 세계 모든 종교들과 종교적 예배종파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북미(北美) 지역에서 평화스럽게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은, 이 48개 주들이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였고 자아-결정권을 갖는 권리들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은 무장과 비무장의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징집인가 혹은 자발적 군대 봉사인가 하는 것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이들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강대국들로부터 현대의 기계화된 무기들과 모든 유형의 폭탄들을 다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가적 주권의 신성한 권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은 주먹과 돌과 방망이를 가지고라도 싸울 것이다.

전쟁이 사람의 가장 크고 끔찍한 병이 아니다; 전쟁은 증상, 그 결과이다. 실제 병은 국가적 주권이라는 병균이다.

유란시아 국가들은 실제 주권을 소유해 보지 못하였다; 세계적 전쟁들의 참상과 황폐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주권을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인류 전체의 범세계적 정부의 창조에서, 국가들은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후로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는 줄 수 있는 세계 주권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관련사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국가적인 관련사들은 국가 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지고; 국제적인 관련사들은 범세계 정부에 의해서 관리·운영될 것이다.

세계평화는, 조약, 외교, 외교 정책, 연맹, 힘의 균등, 혹은 민족주의적 주권으로 속임수를 쓰는 어떤 다른 유형의 미봉책으로도 유지될 수 없다. 세계에 통용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계 정부—모든 인류의 주권—에 의해 강화되어야만 한다.

개별존재들은 세계정부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시민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개별적 해방에 대한 대부분의 간섭은, 국가정부가 기꺼이 국제적 관련사들에 관하여 그들의 주권을 범세계적 정부에게 맡겼을 때 사라질 것이다.

134:6.4 (1490.7) Another world war will teach the so-called sovereign nations to form some sort of federation, thus creating the machinery for preventing small wars, wars between the lesser nations. But global wars will go on until the government of mankind is created. Global sovereignty will prevent global wars — nothing else can.

134:6.5 (1490.8) The forty-eight American free states live together in peace. There are among the citizens of these forty-eight states all of the various nationalities and races that live in the ever-warring nations of Europe. These Americans represent almost all the religions and religious sects and cults of the whole wide world, and yet here in North America they live together in peace. And all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these forty-eight states have surrendered their sovereignty and have abandoned all notions of the supposed rights of self-determination.

134:6.6 (1490.9) It is not a question of armaments or disarmament. Neither does the question of conscription or voluntary military service enter into these problems of maintaining world-wide peace. If you take every form of modern mechanical armaments and all types of explosives away from strong nations, they will fight with fists, stones, and clubs as long as they cling to their delusions of the divine right of national sovereignty.

134:6.7 (1491.1) War is not man's great and terrible disease; war is a symptom, a result. The real disease is the virus of national sovereignty.

134:6.8 (1491.2) Urantia nations have not possessed real sovereignty; they never have had a sovereignty which could protect them from the ravages and devastations of world wars. In the creation of the global government of mankind, the nations are not giving up sovereignty so much as they are actually creating a real, bona fide, and lasting world sovereignty which will henceforth be fully able to protect them from all war. Local affairs will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s; national affairs, by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affairs will be administered by global government.

134:6.9 (1491.3) World peace cannot be maintained by treaties, diplomacy, foreign policies, alliances, balances of power, or any other type of makeshift juggling with the sovereignties of nationalism. World law must come into being and must be enforced by world government — the sovereignty of all mankind.

134:6.10 (1491.4) The individual will enjoy far more liberty under world government. Today, the citizens of the great powers are taxed, regulated, and controlled almost oppressively, and much of this present interference with individual liberties will vanish when the national governments are willing to trustee their sovereignty as regards international

범세계적 정부 아래에서 국가적 집단들은 순수한 민주주의의 개인적 해방을 실현하고 즐길 수 있는 실제 기회를 잘 제공받게 될 것이다. 자아-결정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돈과 무역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규제에 의해서 세계적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곧 범세계적 언어가 생기게 될 것이며, 적어도 언젠가는 범세계적 종교—혹은 범세계적 차원의 견해를 가진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집단적인 안전은, 그 집합체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결코 잘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인류를 대표하는 정부의 정치적 주권은 지구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은 모든 사람들 간의 친선을 언제까지나 보장할 것이다. 지상의 평화와 사람들 간의 선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심보이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들은 평화스러운 교수진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우르미아 교수진에 합세하였던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좀 더 지혜로웠고 좀 더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예수의 가르침의 반향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심보이톤의 맏아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너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아브너는 선생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 선생들은 완고한 사람들이 되었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선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다른 신앙들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들은 카라반의 지휘-안내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강의를, 예수 자신이 강연했었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다.

교수진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자, 세 형제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원을 끊었고, 5년 후에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나중에 그것은 미트라 사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나 결국에는 주신(酒神) 축제들을 벌이다가 불에 타버렸다.

제 7 장. 31살 되던 해 (서기 25년)

예수가 카스피 해로 떠났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세계 여행이 거의 완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다시 팔레스타인 밖으로 여행한 것은 한 번밖에 더 없었는데, 그것은 시리아로 간 것이었다.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한 후, 그는 며칠 동안 나사렛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4월 중순에 그는 티레를 향하여 나사렛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북쪽으로 여행하여 시돈에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그의 목적지는 안디옥이었다.

affairs into the hands of global government.

^{134:6.11 (1491.5)} Under global government the national groups will be afforded a real opportunity to realize and enjoy the personal liberties of genuine democracy. The fallacy of self-determination will be ended. With global regulation of money and trade will come the new era of world-wide peace. Soon may a global language evolve, and there will be at least some hope of sometime having a global religion — or religions with a global viewpoint.

^{134:6.12 (1491.6)} Collective security will never afford peace until the collectivity includes all mankind.

^{134:6.13 (1491.7)} The political sovereignty of representative mankind government will bring lasting peace on earth, and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will forever insure good will among all men. And there is no other way whereby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can be realized.

^{134:6.14 (1491.8)} After the death of Cymboyton, his sons encountered great difficulties in maintaining a peaceful faculty. The repercussions of Jesus' teachings would have been much greater if the later Christian teachers who joined the Urmia faculty had exhibited more wisdom and exercised more tolerance.

^{134:6.15 (1491.9)} Cymboyton's eldest son had appealed to Abner at Philadelphia for help, but Abner's choice of teachers was most unfortunate in that they turned out to be unyielding and uncompromising. These teachers sought to make their religion dominant over the other beliefs. They never suspected that the oft-referred-to lectures of the caravan conductor had been delivered by Jesus himself.

^{134:6.16 (1491.10)} As confusion increased in the faculty, the three brothers withdrew their financial support, and after five years the school closed. Later it was reopened as a Mithraic temple and eventually burned down in connection with one of their orgiastic celebrations.

7. THE THIRTY-FIRST YEAR (A.D. 25)

^{134:7.1 (1492.1)} When Jesus returned from the journey to the Caspian Sea, he knew that his world travels were about finished. He made only one more trip outside of Palestine, and that was into Syria. After a brief visit to Capernaum, he went to Nazareth, stopping over a few days to visit. In the middle of April he left Nazareth for Tyre. From there he journeyed on north, tarrying for a few days at Sidon, but his destination was Antioch.

이 해에 예수는 혼자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두루 돌아다녔다. 이 여행을 통하여, 그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나사렛의 목수, 가버나움의 배 건조자, 다마스커스의 서기관, 알렉산드리아의 교사 등이 그것이었다.

안디옥에서 사람의 아들은 두 달을 살면서, 일, 관찰, 공부, 방문, 사명활동을 하였으며, 그 동안 내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들이 인간 실존이라는 환경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지에 대해 배웠다. 이 기간 중 3주 동안 그는 천막-만드는 자로서 일하였다. 그는 이번 여행 중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들보다도 안디옥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10년 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다마스커스 서기관의 교리들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주(主)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는 안디옥으로부터 케자리아를 향하여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몇 주를 지내다가 해변을 따라 요파로 내려갔다. 요파에서 그는 잠니아, 아쉬돏, 가자를 향하여 내륙 쪽으로 여행하였다. 가자에서부터 그는 내륙 도로를 택하여 비엘세바로 갔고 그곳에서 일주일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적(私的)으로 혼자 한 것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여행을 출발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남쪽에 있는 비엘세바로부터 북쪽의 단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는 여행 중에 그는 헤브론과 베들레헴(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출생지를 방문하였다), 예루살렘(그는 베다니를 방문하지 않았다), 비어룻, 레보나, 시카, 세켄, 사마리아, 게바, 엔-가님, 엔도르, 마돈을 들렸고; 막달라와 가버나움을 지나서 그는 북쪽으로 여행하였다; 메롬의 우물들 동쪽을 지나가면서 카라타를 지나 단, 곧 케자리아 빌립보로 갔다.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헤르몬 산으로 가도록 예수를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는 자신의 인간 마음을 충만히 이해하는 일을 완결했으며, 땅에서의 나머지의 자신의 사명에 온 전력을 효과 있게 하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체험은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지상 일생에 있어서 매우 다르고 특이한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였다. 매우 비슷한 또 하나의 체험은, 그의 세례 직후에 그가 혼자서 펠라 가까이의 언덕을 지나갈 때 가진 것이었다. 헤르몬 산에서의 이 고립 기간은 그의 순수한 인간 생애의 종료, 필사자 증여의 엄밀한 법 해석상의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나중에 있었던 고립 기간은 증여에서의 더욱 신성한 위상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헤르몬 산기슭에서 6주 동안을 혼자 하느님과 함께 지냈다.

134:7.2 (1492.2) This is the year of Jesus' solitary wanderings through Palestine and Syria. Throughout this year of travel he was known by various nam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the carpenter of Nazareth, the boatbuilder of Capernaum, the scribe of Damascus, and the teacher of Alexandria.

134:7.3 (1492.3) At Antioch the Son of Man lived for over two months, working, observing, studying, visiting, ministering, and all the while learning how man lives, how he thinks, feels, and reacts to the environment of human existence. For three weeks of this period he worked as a tentmaker. He remained longer in Antioch than at any other place he visited on this trip. Ten years later, when the Apostle Paul was preaching in Antioch and heard his followers speak of the doctrines of the Damascus scribe, he little knew that his pupils had heard the voice, and listened to the teachings, of the Master himself.

134:7.4 (1492.4) From Antioch Jesus journeyed south along the coast to Caesarea, where he tarried for a few weeks, continuing down the coast to Joppa. From Joppa he traveled inland to Jamnia, Ashdod, and Gaza. From Gaza he took the inland trail to Beersheba, where he remained for a week.

134:7.5 (1492.5) Jesus then started on his final tour, as a private individual, through the heart of Palestine, going from Beersheba in the south to Dan in the north. On this journey northward he stopped at Hebron, Bethlehem (where he saw his birthplace), Jerusalem (he did not visit Bethany), Beeroth, Lebonah, Sychar, Schecham, Samaria, Geba, En-Gannim, Endor, Madon; passing through Magdala and Capernaum, he journeyed on north; and passing east of the Waters of Merom, he went by Karahta to Dan, or Caesarea-Philippi.

134:7.6 (1492.6)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now led Jesus to forsake the dwelling places of men and betake himself up to Mount Hermon that he might finish his work of mastering his human mind and complete the task of effecting his full consecration to the remainder of his lifework on earth.

134:7.7 (1492.7) This was one of those unusual and extraordinary epochs in the Master's earth life on Urantia. Another and very similar one was the experience he passed through when alone in the hills near Pella just subsequent to his baptism. This period of isolation on Mount Hermon marked the termination of his purely human career, that is, the technical termination of the mortal bestowal, while the later isolatio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more divine phase of the bestowal. And Jesus lived alone with God for six weeks on the slopes of Mount Hermon.

제 8 장. 헤르몬 산에서의 체류

케사리아 빌립보 근처에서 얼마 동안을 지낸 후에, 예수는 자신의 생필품(生必需品)들을 준비하였으며, 그것을 짐을 싣는 짐승 위에 붙들어 매고, 티그라스라는 아이를 데리고 다마스쿠스 길을 따라 헤르몬 산기슭에 있는 한때 베이트젠이라고 알려진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서기 25년 8월 중순경 그의 본부를 정하고 물자들을 티그라스에게 맡아보게 한 후, 그는 인적이 드문 산바탈을 올라갔다. 그 첫째 날에 티그라스는 약 해발 6,000피트 되는 지점까지 예수를 동행하였고, 그들은 그곳에 돌로 저장고를 지었으며, 티그라스가 일주일에 두 번씩 그곳에 음식을 갖다 놓기로 하였다.

첫 날, 티그라스를 보낸 후, 예수는 산을 약간 더 올라서 기도하기 위해 멈추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에게 “티그라스와 함께” 할 수호 세라핌천사를 보내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와의 그의 마지막 투쟁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요청은 수락되었다. 그는 단지 그를 인도하고 유지시키는 내주하는 조절자와 함께 이 엄청난 시험에 들어갔다.

예수는 산에 있을 동안에 음식을 간소하게 먹었다; 그는 한 번에 하루나 또는 이틀만 금식하였다. 이 산에서 그가 대면하였던 존재, 그리고 그가 함께 영적으로 씨름을 벌렸던 존재, 그리고 그가 힘으로 물리쳤던, 초인간적 존재들은 실체였다; 그들은 사타니아 체계 안에 있는 그의 적(敵)들이었다; 그들은, 착란을 일으킨 미움으로부터의 환상을 실체와 구분할 수 없는, 허약하고 굶주린 필사자의 지적 변덕에서 진화되어 나온 상상의 유령들이 아니었다.

예수는 8월의 마지막 3주와 9월의 첫 3주를 헤르몬 산에서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마음-납득과 개인성-통제의 순환계들을 성취하는 필사자의 임무를 완결하였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갖는 이 기간 동안, 내주 하는 조절자도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를 완료하였다. 이 세상 창조체의 필사자의 목표는 그곳에서 달성되었다. 다만 마음과 조절자의 조화라는 마지막 위상의 완성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5주가 넘도록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중단없는 밀접한 교제를 가진 후에, 예수는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시간-공간 개인성 현시활동에서의 물질적 차원을 극복하는 자신의 승리의 확실성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 본성의 상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충만하게 믿게 되었고, 주저없이 그것을 주장하였다.

산에서의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예수는 하느님에게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타니아에 있는 자신의 적들과 회의를 가

8. THE SOJOURN ON MOUNT HERMON

134:8.1 (1492.8) After spending some time in the vicinity of Caesarea-Philippi, Jesus made ready his supplies, and securing a beast of burden and a lad named Tiglath, he proceeded along the Damascus road to a village sometime known as Beit Jenn in the foothills of Mount Hermon. Here, near the middle of August, A.D. 25, he established his headquarters, and leaving his supplies in the custody of Tiglath, he ascended the lonely slopes of the mountain. Tiglath accompanied Jesus this first day up the mountain to a designated point about 6,000 feet above sea level, where they built a stone container in which Tiglath was to deposit food twice a week.

134:8.2 (1493.1) The first day, after he had left Tiglath, Jesus had ascended the mountain only a short way when he paused to pray. Among other things he asked his Father to send back the guardian seraphim to “be with Tiglath.” He requested that he be permitted to go up to his last struggle with the realities of mortal existence alone. And his request was granted. He went into the great test with only his indwelling Adjuster to guide and sustain him.

134:8.3 (1493.2) Jesus ate frugally while on the mountain; he abstained from all food only a day or two at a time. The superhuman beings who confronted him on this mountain, and with whom he wrestled in spirit, and whom he defeated in power, were *real*; they were his archenemies in the system of Satania; they were not phantasms of the imagination evolved out of the intellectual vagaries of a weakened and starving mortal who could not distinguish reality from the visions of a disordered mind.

134:8.4 (1493.3) Jesus spent the last three weeks of August and the first three weeks of September on Mount Hermon. During these weeks he finished the mortal task of achieving the circles of mind-understanding and personality-control. Throughout this period of communion with his heavenly Father the indwelling Adjuster also completed the assigned services. The mortal goal of this earth creature was there attained. Only the final phase of mind and Adjuster attunement remained to be consummated.

134:8.5 (1493.4) After more than five weeks of unbroken communion with his Paradise Father, Jesus became absolutely assured of his nature and of the certainty of his triumph over the material levels of time-space personality manifestation. He fully believed in, and did not hesitate to assert, the ascendancy of his divine nature over his human nature.

134:8.6 (1493.5) Near the end of the mountain sojourn Jesus asked his Father if he might be permitted to hold conference with his Satania enemies as the

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헤르몬 산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엄청난 유혹, 우주적 시험이 발생하였다. 사탄(루시퍼를 대변한)과 반역적인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가 예수 앞에 나왔고 그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 “유혹”, 반역적인 개인성들의 잘못된 대표 권한 앞에서 인간의 충성심에 대한 이 마지막 시험은 음식이나 사원의 폭대기 또는 무엄한 행위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위력 있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주권과 관계된 것이었다. 너희들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그 상징은, 유치하게 생각하는 진부한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세대들은 그 사건 많은 날에 헤르몬 산에서 사람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투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나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루시퍼의 사자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들과 반대 제안들에 대하여, 예수는 단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반역을 일으키는 나의 아들인 너에게는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성스러운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창조자-아버지이다; 나는 너를 도저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고, 너는 이미 나의 자비를 거절하였다. 나는 너를 더 높은 우주의 재판관들의 판결에 맡기기로 하였다.”

루시퍼가 제안한 모든 절충안들과 미봉책들에 대하여, 육신화된 증여에 대한 그럴듯한 모든 제안들에 대하여, 예수는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시험적인 괴로운 체험이 완결되자, 떠나갔던 수호 세라핌천사가 예수의 곁으로 돌아와서 그를 섬겼다.

늦은 여름의 어느 날 오후,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연의 정적 속에서,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의 절대적 주권을 성취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상에서 창조자 아들들이 필사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한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임무를, 그는 바로 그 날에 완성하였다. 이 감격적인 성취에 대한 우주의 발표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있었던 그의 세례의 날 까지 미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산에서 그날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수가 헤르몬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타니아에서의 루시퍼의 반란과 유란시아에서의 칼리가스티아의 탈퇴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예수는 자신의 우주 주권을 갖기 위하여 그에게 요구되어진 마지막 값을 이미 지불하였으며,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모든 반역 상태들을 규제하고, 그러한 모든 미래의 격변들이 (그런 것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즉석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정해졌다. 따라서 소위 예수의 “큰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세례 직후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 이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산에서의 체류를 끝내고 예수가 하산할 때, 그는 음식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로 올라오던 티그라스를 만났다. 그를 되돌려 보내며 그는 단지 이

Son of Man, as Joshua ben Joseph. This request was granted. During the last week on Mount Hermon the great temptation, the universe trial, occurred. Satan (representing Lucifer) and the rebellious Planetary Prince, Caligastia, were present with Jesus and were made fully visible to him. And this “temptation,” this final trial of human loyalty in the face of the misrepresentations of rebel personalities, had not to do with food, temple pinnacles, or presumptuous acts. It had not to do with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with the sovereignty of a mighty and glorious universe. The symbolism of your records was intended for the backward ages of the world’s childlike thought. And subsequent generations should understand what a great struggle the Son of Man passed through that eventful day on Mount Hermon.

134:8.7 (1493.6) To the many proposals and counterproposals of the emissaries of Lucifer, Jesus only made reply: “May the will of my Paradise Father prevail, and you, my rebellious son, may the Ancients of Days judge you divinely. I am your Creator-father; I can hardly judge you justly, and my mercy you have already spurned. I commit you to the adjudication of the Judges of a greater universe.”

134:8.8 (1494.1) To all the Lucifer-suggested compromises and makeshifts, to all such specious proposals about the incarnation bestowal, Jesus only made reply, “The will of my Father in Paradise be done.” And when the trying ordeal was finished, the detached guardian seraphim returned to Jesus’ side and ministered to him.

134:8.9 (1494.2) On an afternoon in late summer, amid the trees and in the silence of nature, Michael of Nebadon won the unquestion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On that day he completed the task set for Creator Sons to live to the full the incarnated lif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 universe announcement of this momentous achievement was not made until the day of his baptism, months afterward, but it all really took place that day on the mountain. And when Jesus came down from his sojourn on Mount Hermon, the Lucifer rebellion in Satania and the Caligastia secession on Urantia were virtually settled. Jesus had paid the last price required of him to attain the sovereignty of his universe, which in itself regulates the status of all rebels and determines that all such future upheavals (if they ever occur) may be dealt with summarily and effectively. Accordingly, it may be seen that the so-called “great temptation” of Jesus took place sometime before his baptism and not just after that event.

134:8.10 (1494.3) At the end of this sojourn on the mountain, as Jesus was making his descent, he met Tiglath coming up to the rendezvous with

렇게 말하였다. “휴식기간이 끝났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이 단으로 돌아가갈 때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매우 달라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소년에게 당나귀를 주고 그와 작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왔던 같은 길을 따라 남쪽 방향의 가버나움으로 갔다.

제 9 장. 기다림의 시간

이제는 여름이 끝날 때가 되었고, 속죄의 날과 천막축제 절기가 가까워졌다. 예수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족회의를 가진 후, 그 다음 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며, 그들은 호수의 동쪽으로 갔고 게라사를 지나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가는 도중에 그가 그의 동행자와 함께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요한은 예수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예수와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묵으면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지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거의 3주 동안 그 도성(都城)의 안과 근처에서 보냈는데, 적어도 요한은 그랬다. 요한은 여러 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한편 예수는 가까이에 있는 언덕을 거닐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지냈다.

그들 둘 모두 속죄의 날의 엄숙한 예배봉사에 참석하였다. 요한은 유대 종교 의식의 모든 날들 중에서 이날의 의식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예수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아있었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가엾게 보였고 애처롭게 보였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과 속성을 잘못 대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 날의 모든 행위들을 신성한 공의의 사실들과 무한한 자비의 진리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장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성격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자비로우신 행위성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열정에 타올랐지만, 신실한 감시자가 그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에서, 그가 제시하였던 많은 의견들이 요한을 매우 혼란시켰으며; 요한은 그날 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한 실제의 의(意義)를 결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천막축제 주간 내내 요한과 함께 남아있기로 계획하였다. 이 축제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연중 공휴일이었기; 유대인들의 휴가철이었다. 비록 예수는 이 의식의 흥겨운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가벼운 가슴으로 즐겁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즐거워했으며 만족스러운 체험을 했던 것이 분명하였다.

경축의 주간 한창인 중간에, 축제가 완결되기도 전에, 예수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좀더 긴밀한 교제하기를 위하여 언덕으로 가겠다는

food. Turning him back, he said only: “The period of rest is over; I must return to my Father’s business.” He was a silent and much changed man as they journeyed back to Dan, where he took leave of the lad, giving him the donkey. He then proceeded south by the same way he had come, to Capernaum.

9. THE TIME OF WAITING

134:9.1 (1494.4) It was now near the end of the summer, about the time of the day of atonement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had a family meeting in Capernaum over the Sabbath and the next day started for Jerusalem with John the son of Zebedee, going to the east of the lake and by Gerasa and on down the Jordan valley. While he visited some with his companion on the way, John noted a great change in Jesus.

134:9.2 (1494.5) Jesus and John stopped overnight at Bethany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going early the next morning to Jerusalem. They spent almost three weeks in and around the city, at least John did. Many days John went into Jerusalem alone while Jesus walked about over the near-by hills and engaged in many seasons of spiritual communion with his Father in heaven.

134:9.3 (1494.6) Both of them were present at the solemn services of the day of atonement. John was much impressed by the ceremonies of this day of all days in the Jewish religious ritual, but Jesus remained a thoughtful and silent spectator. To the Son of Man this performance was pitiful and pathetic. He viewed it all as mis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and attributes of his Father in heaven. He looked upon the doings of this day as a travesty upon the facts of divine justice and the truths of infinite mercy. He burned to give vent to the declaration of the real truth about his Father’s loving character and merciful conduct in the universe, but his faithful Monitor admonished him that his hour had not yet come. But that night, at Bethany, Jesus did drop numerous remarks which greatly disturbed John; and John never fully understood the real significance of what Jesus said in their hearing that evening.

134:9.4 (1495.1) Jesus planned to remain throughout the week of the feast of tabernacles with John. This feast was the annual holiday of all Palestine; it was the Jewish vacation time. Although Jesus did not participate in the merriment of the occasion, it was evident that he derived pleasure and experienced satisfaction as he beheld the lighthearted and joyous abandon of the young and the old.

134:9.5 (1495.2) In the midst of the week of celebration and ere the festivities were finished, Jesus took leave of John, saying that he desired to retire to

말을 하고 요한에게서 떠나갔다. 요한이 그와 함께 가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지시하였다: “너는 사람의 아들의 짐을 같이 지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과수자만이 도시가 평화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불침번을 서야만 한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베다니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거의 일주일을 홀로 지낸 후, 그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목숨을 버렸던 장소 가까이 있는 길보아산 기슭에서 하루 밤과 낮을 혼자 지냈으며; 그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요한과 예루살렘으로 떠났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쾌활한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는 세베대의 작업소에 두었던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상자로 가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였다: “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는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동생 야고보 곁에서 다음 해 1월까지 몇 달 동안 일하였다. 예수와 함께 일한 이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야고보는 자신이 납득하기 힘든 사람의 아들의 일생의 과업에 대해 어떤 의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코 다시는 예수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실제로 그리고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예수와 이 마지막 작업 기간 동안, 그는 좀 더 큰 배의 실내를 완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모든 일에 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훌륭한 배를 완성시켰을 때 인간 성취의 만족을 체험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사소한 일들에는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맡은 일의 핵심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이는 일꾼이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설교를 하는 요한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왔으며,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는 요한이 사명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강의 개울로부터 요단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서기 26년 1월, 요한이 펠라 가까이 있는 지점까지 강을 따라 여행하기까지, 예수는 배를 만들면서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때에 그는 작업도구들을 내려놓고,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였고,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로 갔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이미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그 지역의 땅들을 오가며 방문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대중을 위한 선생으로 나타난 그를, 이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사적인 한 개별존재로 알고 지내며 사랑하였던 동일한 개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중을 위한 그리고 권위 있는 선생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

the hills where he might the better commune with his Paradise Father. John would have gone with him, but Jesus insisted that he stay through the festivities, saying: “It is not required of you to bear the burden of the Son of Man; only the watchman must keep vigil while the city sleeps in peace.” Jesus did not return to Jerusalem. After almost a week alone in the hills near Bethany, he departed for Capernaum. On the way home he spent a day and a night alone on the slopes of Gilboa, near where King Saul had taken his life; and when he arrived at Capernaum, he seemed more cheerful than when he had left John in Jerusalem.

134:9.6 (1495.3) The next morning Jesus went to the chest containing his personal effects, which had remained in Zebedee's workshop, put on his apron, and presented himself for work, saying, “It behooves me to keep busy while I wait for my hour to come.” And he worked several months, until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in the boatshop, by the side of his brother James. After this period of working with Jesus, no matter what doubts came up to becloud James's understanding of the lifework of the Son of Man, he never again really and wholly gave up his faith in the mission of Jesus.

134:9.7 (1495.4) During this final period of Jesus' work at the boatshop, he spent most of his time on the interior finishing of some of the larger craft. He took great pains with all his handiwork and seemed to experience the satisfaction of human achievement when he had completed a commendable piece of work. Though he wasted little time upon trifles, he was a painstaking workman when it came to the essentials of any given undertaking.

134:9.8 (1495.5) As time passed, rumors came to Capernaum of one John who was preaching while baptizing penitents in the Jordan, and John preache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repent and be baptized.” Jesus listened to these reports as John slowly worked his way up the Jordan valley from the ford of the river nearest to Jerusalem. But Jesus worked on, making boats, until John had journeyed up the river to a point near Pella in the month of January of the next year, A.D. 26, when he laid down his tools, declaring, “My hour has come,” and presently presented himself to John for baptism.

134:9.9 (1495.6) But a great change had been coming over Jesus. Few of the people who had enjoyed his visits and ministrations as he had gone up and down in the land ever subsequently recognized in the public teacher the same person they had known and loved as a private individual in former years. And there was a reason for this failure of his early beneficiaries to recognize him in his later role of public and authoritative teacher. For long years

한 마음과 영의 변환이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왔었고, 그 사건 많은 헤르몬 산에서의 체류기간동안에 완결되어졌기 때문이었다.

this transformation of mind and spirit had been in progress, and it was finished during the eventful sojourn on Mount Hermon.

제 135 편 세례자 요한

⇨ 134

유랜시아 책

13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5 편 세례자 요한

섹션

소개

- 제 1 장. 나지르인이 된 요한
- 제 2 장. 사가리아의 죽음
- 제 3 장. 목자의 생활
- 제 4 장. 엘리자벳의 죽음
- 제 5 장. 하느님의 왕국
- 제 6 장. 설교를 시작한 요한
- 제 7 장. 북쪽을 향한 요한의 여행
- 제 8 장. 예수와 요한의 만남
- 제 9 장. 40일간의 설교
- 제 10 장. 남쪽으로 여행한 요한
- 제 11 장. 감옥에 갇힌 요한
- 제 12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PAPER 135

JOHN THE BAPTIST

SECTIONS

Introduction

- 1. John Becomes a Nazarite
- 2. The Death of Zacharias
- 3. The Life of a Shepherd
- 4. The Death of Elizabeth
- 5. The Kingdom of God
- 6. John Begins to Preach
- 7. John Journeys North
- 8. Meeting of Jesus and John
- 9. Forty Days of Preaching
- 10. John Journeys South
- 11. John in Prison
- 12. Death of John the Baptist

소개

세례자 요한은, 일 년 전 6월에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기원 전 7년 3월 25일에 태어났다. 5개월 동안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방문을 비밀로 하였다; 그녀가 남편인 사가리아에게 말하였을 때, 그는 매우 고심했었으나 요한이 태어나기 6주 전에 이상한 꿈을 꾸 후에는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을 방문한 것과 사가리아의 꿈 이외에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 이상하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8일째 되는 날에 요한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4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유대의 도시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하면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

INTRODUCTION

135:0.1 (1496.1) JOHN the Baptist was born March 25, 7 B.C., in accordance with the promise that Gabriel made to Elizabeth in June of the previous year. For five months Elizabeth kept secret Gabriel's visitation; and when she told her husband, Zacharias, he was greatly troubled and fully believed her narrative only after he had an unusual dream about six weeks before the birth of John. Excepting the visit of Gabriel to Elizabeth and the dream of Zacharias, there was nothing unusual or supernatural connected with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135:0.2 (1496.2) On the eighth day John was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Jewish custom. He grew up as an ordinary child, day by day and year by year, in the small village known in those days as the City of Judah, about four miles west of Jerusalem.

요한의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기록할만한 발생 사건은 그가 부모와 함께 예수와 나사렛의 가족들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 방문은 그가 6살이 조금 넘었을 때인, 기원 전 1년 6월의 일이었다.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 요한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작은 마을에는 회당 학교가 없었지만; 그러나 사가리아는 사제로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자벳도 유대의 평균적인 여인들보다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녀 또한 “아론의 딸들”의 자손으로 사제의 혈통이었다. 요한이 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정신적, 영적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사가리아는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만 봉사하였다.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양을 기르는 소규모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만으로는 거의 생활이 안 되었으나, 사가리아는 사제신분에게 바쳐져있는 성전의 기금으로부터 정기적인 수당을 받아들었다.

제 1 장. 나지르인이 된 요한

요한은 14세에 졸업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는 이 해를 그가 정식 나지르인의 맹세를 하기에 적당한 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가리아와 엘리자벳은 그들의 아들을 사해(死海) 아래에 있는 엔게디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나지르인 형제회의 남부 본부였으며, 그곳에서 요한은 정식으로 경건하게, 종신토록 있을 이 계층에 가입하였다. 이들 의식을 치르면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죽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요한은 거기서 성전에 나지르인 서약을 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헌물을 제공하는 일을 끝냈다.

요한은 자신의 눈부신 전임자들인 삼손과 예언자 사무엘에게 실시되었었던 것과 똑같은 종신 헌납의 맹세를 하였다. 종신(終身) 나지르인은 신성스럽고 성스러운 개인성으로 여겨졌다. 유대인들은 나지르인을 거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존경과 숭배로서 여겼으며, 종신토록 헌납된 나지르인들이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요한은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고결한 성격의 강한 남자로 자라났다.

16세가 되었을 때,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갈멜산의 선지자에게 지대한 감명을 받게 되어 그의 복장을 본받기로

135:0.3 (1496.3) The most eventful occurrence in John's early childhood was the visit, in company with his parents, to Jesus and the Nazareth family. This visit occurred in the month of June, 1 B.C., when he was a little over six years of age.

135:0.4 (1496.4) After their return from Nazareth John's parents began the systematic education of the lad. There was no synagogue school in this little village; however, as he was a priest, Zacharias was fairly well educated, and Elizabeth was far better educated than the average Judean woman; she was also of the priesthood, being a descendant of the “daughters of Aaron.” Since John was an only child, they spent a great deal of time on his mental and spiritual training. Zacharias had only short periods of service at the temple in Jerusalem so that he devoted much of his time to teaching his son.

135:0.5 (1496.5) Zacharias and Elizabeth had a small farm on which they raised sheep. They hardly made a living on this land, but Zacharias received a regular allowance from the temple funds dedicated to the priesthood.

1. JOHN BECOMES A NAZARITE

135:1.1 (1496.6) John had no school from which to graduate at the age of fourteen, but his parents had selected this as the appropriate year for him to take the formal Nazarite vow. Accordingly, Zacharias and Elizabeth took their son to Engedi, down by the Dead Sea. This was the southern headquarters of the Nazarite brotherhood, and there the lad was duly and solemnly inducted into this order for life. After these ceremonies and the making of the vows to abstain from all intoxicating drinks, to let the hair grow, and to refrain from touching the dead, the family proceeded to Jerusalem, where, before the temple, John completed the making of the offerings which were required of those taking Nazarite vows.

135:1.2 (1496.7) John took the same life vows that had been administered to his illustrious predecessors, Samson and the prophet Samuel. A life Nazarite was looked upon as a sanctified and holy personality. The Jews regarded a Nazarite with almost the respect and veneration accorded the high priest, and this was not strange since Nazarites of lifelong consecration were the only persons, except high priests, who were ever permitted to enter the holy of holies in the temple.

135:1.3 (1497.1) John returned home from Jerusalem to tend his father's sheep and grew up to be a strong man with a noble character.

135:1.4 (1497.2) When sixteen years old, John, as a result of reading about Elijah, became greatly impressed with the prophet of Mount Carmel and

결정했다. 그 날 이후로 요한은 항상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털옷을 입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6피트 이상으로 자랐고 거의 충분하게 자랐다. 흘러내리는 긴 머리와 특이한 복장을 한 그는, 정말로 눈길을 끄는 한 젊은이였다. 그의 부모는 약속의 아이이자 종신 나지르인인 자신들의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제 2 장. 사가리아의 죽음

몇 달 동안 병을 앓은 후에 사가리아는 서기 12년 7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때 요한은 막 18세가 되었다. 나지르인의 서약 중에는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요한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요한은 비록 죽은 자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서약했던 규율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지르인 계층에서의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복종했었는지의문을 가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인들의 정원에 있는 나지르인의 구역에 가서 자신의 정화(淨化)를 위하여 요구되는 희생물을 바쳤다.

이 해 9월에 엘리자벳과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를 방문하러 나사렛으로 갔다. 요한은 그의 일생의 임무를 시작할 것을 바로 결심하려 하였지만, 예수가 말뿐만이 아닌 그의 행동으로 보인 본보기에 의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예수와 마리아에게 작별한 이후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사건까지,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요한과 엘리자벳은 집으로 돌아와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전 기금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사제의 수당을 받기를 요한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2년쯤 지난 후에는 그들의 집까지도 거의 처분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요한이 20세 되던 해 여름에 그들은 헤브론으로 이사하였다. 소위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요한은 앵게디로부터 사해로 합류하는 좀 더 큰 시냇물의 지류인 개울가를 따라 양을 쳤다. 앵게디 거류민단에는 종신 나지르인과 일시적으로 헌납된 나지르인뿐만 아니라, 가족 때와 함께 이 지역에 모여서 나지르인 형제회와 형제우애를 가졌던 금욕하는 수많은 다른 목자(牧者)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일과, 부자 유대인이 그 계층에게 기증한 선물들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이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줄었고 반면 앵게디로의 출입이 늘어났다. 그는 대부분의 나지르인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 형제회와 충분히 형제우애를 가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앵게디

decided to adopt his style of dress. From that day on John always wore a hairy garment with a leather girdle. At sixteen he was more than six feet tall and almost full grown. With his flowing hair and peculiar mode of dress he was indeed a picturesque youth. And his parents expected great things of this their only son, a child of promise and a Nazarite for life.

2. THE DEATH OF ZACHARIAS

135:2.1 (1497.3) After an illness of several months Zacharias died in July, A.D. 12, when John was just past eighteen years of age. This was a time of great embarrassment to John since the Nazarite vow forbade contact with the dead, even in one's own family. Although John had endeavored to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of his vow regarding contamination by the dead, he doubted that he had been wholly obedi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Nazarite order; therefore, after his father's burial he went to Jerusalem, where, in the Nazarite corner of the women's court, he offered the sacrifices required for his cleansing.

135:2.2 (1497.4) In September of this year Elizabeth and John made a journey to Nazareth to visit Mary and Jesus. John had just about made up his mind to launch out in his lifework, but he was admonished, not only by Jesus' words but also by his example, to return home, take care of his mother, and await the “coming of the Father's hour.” After bidding Jesus and Mary good-bye at the end of this enjoyable visit, John did not again see Jesus until the event of his baptism in the Jordan.

135:2.3 (1497.5) John and Elizabeth returned to their home and began to lay plans for the future. Since John refused to accept the priest's allowance due him from the temple funds, by the end of two years they had all but lost their home; so they decided to go south with the sheep herd. Accordingly, the summer that John was twenty years of age witnessed their removal to Hebron. In the so-called “wilderness of Judea” John tended his sheep along a brook that was tributary to a larger stream which entered the Dead Sea at Engedi. The Engedi colony included not only Nazarites of lifelong and time-period consecration but numerous other ascetic herdsman who congregated in this region with their herds and fraternized with the Nazarite brotherhood. They supported themselves by sheep raising and from gifts which wealthy Jews made to the order.

135:2.4 (1497.6) As time passed, John returned less often to Hebron, while he made more frequent visits to Engedi. He was so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ajority of the Nazarites that he found it very difficult fully to fraternize with the brotherhood. But

거류민단의 유명한 영도자이며 우두머리인 아브너를 매우 좋아하였다.

he was very fond of Abner, the acknowledged leader and head of the Engedi colony.

제 3 장. 목자의 생활

3. THE LIFE OF A SHEPHERD

이 작은 여울의 계곡을 따라, 요한은 12개가 넘는, 돌로 만든 움막과 돌을 쌓아서 밤을 지내기 위한 가축우리들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양떼와 염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목자로서의 요한의 일생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제공해 주었다. 그는 베스-주르의 고아 소년인 에즈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면으로는 그 소년을 이미 양자로 삼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요한이 안식일 예배봉사를 드리려고 엔게디로 내려갔을 때는 물론, 어머니를 방문하거나 양을 팔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도, 그를 대신하여 양떼를 돌보았다. 요한과 그 소년은 양고기, 염소우유, 석청, 그 지방의 식용 메뚜기를 먹으면서 매우 간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정해진 식사는 때때로 헤브론과 엔게디에서 가져오는 식량으로 보충되었다.

^{135:3.1 (1497.7)} Along the valley of this little brook John built no less than a dozen stone shelters and night corrals, consisting of piled-up stones, wherein he could watch over and safeguard his herds of sheep and goats. John's life as a shepherd afforded him a great deal of time for thought. He talked much with Ezda, an orphan lad of Beth-zur, whom he had in a way adopted, and who cared for the herds when he made trips to Hebron to see his mother and to sell sheep, as well as when he went down to Engedi for Sabbath services. John and the lad lived very simply, subsisting on mutton, goat's milk, wild honey, and the edible locusts of that region. This, their regular diet, was supplemented by provisions brought from Hebron and Engedi from time to time.

엘리자벳은 팔레스타인과 세상의 관련사에 대한 소식을 요한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옛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가 새 시대, “하늘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이 될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점점 더 깊어갔다. 이 억센 목자는 선지자 다니엘의 글들을 특히 좋아하였다. 그는, 사가리아가 그에게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세상의 위대한 왕국에 대한 역사를 대표한다고 말해 주었던, 위대한 표현인 다니엘의 묘사를 천 번이나 읽었다. 요한은 로마가 이미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하게 뭉쳐진 굳건한 통합된 제국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로마가 앞으로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다른 영토들로 더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는데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리니 이것은 결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이들 왕국을 쳐서 멸하고 언제까지나 설 것이다.” “그에게 영토와 영광과 왕국을 주고 모든 백성과 왕국들과 언어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영토는 영속하는 영토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왕국은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국과 영토, 온 하늘 밑에 있는 왕국의 위세를 지고자의 성자(聖者)들의 민족에게 주게 되리니 그의 왕국은 영속하는 왕국이요. 모든 영토가 섬기고 복종하리라.”

^{135:3.2 (1498.1)} Elizabeth kept John posted about Palestinian and world affairs, and his conviction grew deeper and deeper that the time was fast approaching when the old order was to end; that he was to become the herald of the approach of a new age, “the kingdom of heaven.” This rugged shepherd was very partial to the writings of the Prophet Daniel. He read a thousand times Daniel's description of the great image, which Zacharias had told him represented the history of the great kingdoms of the world, beginning with Babylon, then Persia, Greece, and finally Rome. John perceived that already was Rome composed of such polyglot peoples and races that it could never become a strongly cemented and firmly consolidated empire. He believed that Rome was even then divided, as Syria, Egypt, Palestine, and other provinces; and then he further read “in the days of these kings shall the God of heaven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is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bu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And there was given him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never sha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whose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것과 그리고 성서에서 자기가 읽은 구절을 때문에 생긴 혼란에서 결코 완벽하게 헤어난 적이 없었다. 다니엘에서 그는 다음 구절을 읽었다: “내가 또 밤 환상(幻想) 중에 보았으니,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135:3.3 (1498.2)} John was never able completely to rise above the confusion produced by what he had heard from his parents concerning Jesus and by these passages which he read in the Scriptures. In Daniel he read: “I saw in the night visions, and,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왔고, 그에게 영토와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 선지자의 말들은 자기 부모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18세에 예수를 방문하였을 때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도 역시 성서의 말들과 맞지 않았다. 이러한 혼동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란을 일으킬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먼 사촌인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는 장차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그(요한)는 그의 도래를 미리 알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요한은 로마의 타락과 사악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제국의 방탕함과 도덕적 결핍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 절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했다. 이 억세고 그리고 본성에서 고결한 아이에게, 세상은 이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신성한 시대—하늘의 왕국—가 임할 수 있도록 무르익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이 구(舊)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임과 동시에 새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된다는 느낌이 요한의 가슴속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고 싶은 넘치는 충동이 끓어올랐다: “회개하라! 하느님과 함께 하라!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하고; 세상 관련사들의 새롭고 영원한 체제, 하늘의 왕국 도래를 위하여 너희 자신들을 준비해라.”

제 4 장. 엘리자벳의 죽음

서기 22년 8월 17일, 요한이 28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나지르인의 제약 조건들을 알고 있는 엘리자벳의 친구들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전에 장례식 준비를 끝냈다. 그가 어머니 죽음의 소식을 받았을 때, 그는 에즈다에게 양떼들을 앵게디로 몰고 가도록 시켰고 자신은 헤브론으로 떠났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앵게디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의 양떼를 형제회에 기증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한 계절 동안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끊었다. 요한은 신성에 가까이 가는 오직 전통적 방식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의 기록만을 잘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엘리야는 그가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선지자였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서 첫째가는 사람이었으며,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메신저로서의 이러한 장구하고 빛나는 계열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2년 반 동안, 요한은 앵게디에서 살았고, 형제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 설득하였다; “하늘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came with the clouds of heaven, and there was given him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But these words of the prophet did not harmonize with what his parents had taught him. Neither did his talk with Jesus, at the time of his visit when he was eighteen years old, correspond with these statements of the Scriptures. Notwithstanding this confusion, throughout all of his perplexity his mother assured him that his distant cousin, Jesus of Nazareth, was the true Messiah, that he had come to sit on the throne of David, and that he (John) was to become his advance herald and chief support.

135:3.4 (1498.3) From all John heard of the vice and wickedness of Rome and the dissoluteness and moral barrenness of the empire, from what he knew of the evil doings of Herod Antipas and the governors of Judea, he was minded to believe that the end of the age was impending. It seemed to this rugged and noble child of nature that the world was ripe for the end of the age of man and the dawn of the new and divine age — the kingdom of heaven. The feeling grew in John's heart that he was to be the last of the old prophets and the first of the new. And he fairly vibrated with the mounting impulse to go forth and proclaim to all men: “Repent! Get right with God! Get ready for the end; prepare yourselves for the appearance of the new and eternal order of earth affairs, the kingdom of heaven.”

4. THE DEATH OF ELIZABETH

135:4.1 (1499.1) On August 17, A.D. 22, when John was twenty-eight years of age, his mother suddenly passed away. Elizabeth's friends, knowing of the Nazarite restrictions regarding contact with the dead, even in one's own family, made all arrangements for the burial of Elizabeth before sending for John. When he received word of the death of his mother, he directed Ezda to drive his herds to Engedi and started for Hebron.

135:4.2 (1499.2) On returning to Engedi from his mother's funeral, he presented his flocks to the brotherhood and for a season detached himself from the outside world while he fasted and prayed. John knew only of the old methods of approach to divinity; he knew only of the records of such as Elijah, Samuel, and Daniel. Elijah was his ideal of a prophet. Elijah was the first of the teachers of Israel to be regarded as a prophet, and John truly believed that he was to be the last of this long and illustrious line of the messengers of heaven.

135:4.3 (1499.3) For two and a half years John lived at Engedi, and he persuaded most of the brotherhood that “the end of the age was at hand”;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bout to appear.”

초기 가르침들은, 당시의 유대 관념과, 그들의 이방 통치자의 손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구원을 약속한 메시아의 개념에 근거를 둔 것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요한은 나지르인들의 본거지인 엔게디에서 자신이 발견한 성스러운 글들을 많이 읽었다. 그는 특히 이사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의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다섯 장을 읽고 또 읽었으며, 그는 이 예언들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의 구절을 말라기에서 읽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들의 가슴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가슴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요한으로 하여금 곧 도래할 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망갈 것을 권고하리 나아가는 것을 저지한 것은,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말라기의 약속뿐이었다. 요한은 곧 도래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무르익어 있었지만, 앞으로 올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그로 하여금 2년 이상이나 뒤로 물러서 있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라기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 예언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을까?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였을까? 그는 마침내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로 불렸으므로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에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생각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품었다.

요한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와 타락에 대해 직선적이고 비타협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하게 한 것은 엘리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고 엘리야처럼 말하려고 애를 썼는데; 외모로 나타나는 모든 측면에서 그는 옛날 선지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건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아이였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정의로운 설교자였다. 요한은 무식한 자가 아니었으며 유대 성서에 대해 학식이 높았으나, 세련되어 있지는 못하였다. 그는 명철한 사색가였고 힘 있는 웅변가였으며 불같은 탄핵자였다. 그는 자기 시대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설득력 있게 꾸짖는 사람이었다.

드디어 그는 하느님의 왕국인 새 시대를 선포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는 자신이 메시아의 전령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였다; 모든 의심을 쓸어버리고, 서기 25년 3월 어느 날, 짧기는 하였지만 찬란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하여 대중을 위한 설교자로서 엔게디를 떠났다.

제 5 장. 하느님의 왕국

요한의 메시지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약하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처지를 고려해야만

And all his early teaching was based upon the current Jewish idea and concept of the Messiah as the promised deliverer of the Jewish nation from the domination of their gentile rulers.

^{135:4.4 (1499.4)} Throughout this period John read much in the sacred writings which he found at the Engedi home of the Nazarites. He was especially impressed by Isaiah and by Malachi, the last of the prophets up to that time. He read and reread the last five chapters of Isaiah, and he believed these prophecies. Then he would read in Malachi: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he sha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ward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ward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And it was only this promise of Malachi that Elijah would return that deterred John from going forth to preach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to exhort his fellow Jews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John was ripe for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but this expectation of the coming of Elijah held him back for more than two years. He knew he was not Elijah. What did Malachi mean? Was the prophecy literal or figurative? How could he know the truth? He finally dared to think that, since the first of the prophets was called Elijah, so the last should be known, eventually, by the same name. Nevertheless, he had doubts, doubts sufficient to prevent his ever calling himself Elijah.

^{135:4.5 (1499.5)} It was the influence of Elijah that caused John to adopt his methods of direct and blunt assault upon the sins and vices of his contemporaries. He sought to dress like Elijah, and he endeavored to talk like Elijah; in every outward aspect he was like the olden prophet. He was just such a stalwart and picturesque child of nature, just such a fearless and daring preacher of righteousness. John was not illiterate, he did well know the Jewish sacred writings, but he was hardly cultured. He was a clear thinker, a powerful speaker, and a fiery denunciator. He was hardly an example to his age, but he was an eloquent rebuke.

^{135:4.6 (1499.6)} At last he thought out the method of proclaiming the new age, the kingdom of God; he settled that he was to become the herald of the Messiah; he swept aside all doubts and departed from Engedi one day in March of A.D. 25 to begin his short but brilliant career as a public preacher.

5. THE KINGDOM OF GOD

^{135:5.1 (1500.1)} In order to understand John's message,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status of

한다. 거의 100년 동안이나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궁지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방 군주들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해야 할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모세가 가르치기를, 정의는 반드시 번영과 힘으로 보상받는다 고 하지 않았던가?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말인가? 왜 다윗의 왕좌는 황폐하고 비어있는가? 모세의 교리와 유대의 선지자들의 교훈들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자신들의 민족적 처참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와 요한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적 선생들의 새로운 학파인 종말론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났다. 이 새로운 선생들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굴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신앙 체계를 유도해 내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민족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다. 그들은 바빌론과 다른 나라들에 의한 지난 간 날들의 포로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잘 알려진 이유들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은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운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의 고통의 날은 거의 끝이 나고 있고;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단련은 거의 완결되었으며; 이교도에 대한 하느님의 인내심도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였다. 로마 통치의 종료는 시대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고, 창조는 그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곧 하느님의 왕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끈기 있게 가르쳤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의 골자가 되었던 그 단어—하늘의 왕국—의 의미였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은 단지 한 가지의 의미가 있을 뿐이었는데: 하느님(메시아)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똑같은 힘의 완전함으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의미하였다.

요한의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물어 보았는데: “왕국은 언제쯤에나 오게 됩니까?”라는 것이었다. 이방 나라의 통치는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온 유대사회에는, 오랜 세대에 걸쳐 품었던 갈망의 완료상태가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할 것이라는 열렬한 희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넘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도래할 왕국의 성격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추측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절박하게 임박하였고 바로 문전 밖까지 가까이 왔다고 하나같이 믿었다. 구약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다윗왕의 후계자인 메시아에 의해 다스려지는, 적들로부터 해방되어 재건된 유대 국가를 위한 새로운 왕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리라고 문자 그대로 기대하였는데, 메시아가 빠른 시일 내에 온 세상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인정되어 질 것이라고 믿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the Jewish people at the time he appeared upon the stage of action. For almost one hundred years all Israel had been in a quandary; they were at a loss to explain their continuous subjugation to gentile overlords. Had not Moses taught that righteousness was always rewarded with prosperity and power? Were they not God's chosen people? Why was the throne of David desolate and vacant? In the light of the Mosaic doctrines and the precepts of the prophets the Jews found it difficult to explain their long-continued national desolation.

135:5.2 (1500.2) About one hundred years before the days of Jesus and John a new school of religious teachers arose in Palestine, the apocalyptists. These new teachers evolved a system of belief that accounted for the sufferings and humiliation of the Jew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paying the penalty for the nation's sins. They fell back onto the well-known reasons assigned to explain the Babylonian and other captivities of former times. But, so taught the apocalyptists, Israel should take heart; the days of their affliction were almost over; the discipline of God's chosen people was about finished; God's patience with the gentile foreigners was about exhausted. The end of Roman rule was synonymous with the end of the age and, in a certain sense, with the end of the world. These new teachers leaned heavily on the predictions of Daniel, and they consistently taught that creation was about to pass into its final stage; the kingdoms of this world were about to become the kingdom of God. To the Jewish mind of that day this was the meaning of that phrase — the kingdom of heaven — which runs throughout the teachings of both John and Jesus. To the Jews of Palestine the phrase “kingdom of heaven” had but one meaning: an absolutely righteous state in which God (the Messiah) would rule the nations of earth in perfection of power just as he ruled in heaven —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135:5.3 (1500.3) In the days of John all Jews were expectantly asking, “How soon will the kingdom come?” There was a general feeling that the end of the rule of the gentile nations was drawing near. There was present throughout all Jewry a lively hope and a keen expectation that the consummation of the desire of the ages would occur during the lifetime of that generation.

135:5.4 (1500.4) While the Jews differed greatly in their estimates of the nature of the coming kingdom, they were alike in their belief that the event was impending, near at hand, even at the door. Many who read the Old Testament literally looked expectantly for a new king in Palestine, for a regenerated Jewish nation delivered from its enemies and presided over by the successor of King David, the Messiah who would quickly be acknowledged as the rightful and righteous ruler of

믿음이 깊은 유대인들의 집단은, 이 하느님의 왕국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래할 새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은 어떤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의 왕국의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또한 이 왕국은 영속하는 영토가 될 것이라는 것과 죄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과 새 왕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끝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가르쳤다.

어떤 철저한 정화 혹은 정제의 훈련이, 땅에서의 새로운 왕국의 설립 이전에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파괴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반면에 믿는 자들이 휩쓸어서 우주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영성주의자들은, 왕국이 하느님의 큰 심판에 의하여 예고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심판은 불의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심판으로 내뿜길 것이며, 그와 동시에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지닌 성자(聖者)들을 높이 들어올려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국가들을 통치할 사람의 아들과 함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후대의 집단은 믿음이 강한 많은 이방인들도 새 왕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믿기까지 하였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직접적이고도 신성한 간섭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중재(仲裁)하는 어떤 대리인(代理人)인 메시아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서만 간직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단지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든지 또는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모든 신성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시아는 선지자 이상이었는데; 메시아는 하느님의 왕국인 새 왕국의 설립을 이룩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전통적인 유대인의 감각으로 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누가 이러한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또한 유대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나이든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교리에 집착했다. 새로운 자들은, 새 왕국은 하늘왕국이기 때문에 새 통치자 역시 하늘에서 하느님 오른쪽에 오래 앉아 계셨던 신성한 개인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지만, 새 왕국의 통치자를 인간 메시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하느님의 아들—인 하늘의 영주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통치권자를 기대하면서 오래도록 기다려 왔었다.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임박하였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유대 나라의 종교적 배경은 이상과 같았다.

all the world. Another, though smaller, group of devout Jews held a vastly different view of this kingdom of God. They taught that the coming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that the world was approaching its certain end, and that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ere to usher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that this kingdom was to be an everlasting dominion, that sin was to be ended, and that the citizens of the new kingdom were to become immortal in their enjoyment of this endless bliss.

135:5.5 (1500.5) All were agreed that some drastic purging or purifying discipline would of necessity precede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ingdom on earth. The literalists taught that a world-wide war would ensue which would destroy all unbelievers, while the faithful would sweep on to universal and eternal victory. The spiritists taught that the kingdom would be ushered in by the great judgment of God which would relegate the unrighteous to their well-deserved judgment of punishment and final destruction, at the same time elevating the believing saints of the chosen people to high seats of honor and authority with the Son of Man, who would rule over the redeemed nations in God's name. And this latter group even believed that many devout gentiles might be admitted to the fellowship of the new kingdom.

135:5.6 (1501.1) Some of the Jews held to the opinion that God might possibly establish this new kingdom by direct and divine intervention, but the vast majority believed that he would interpose some representative intermediary, the Messiah. And that was the only possible meaning the term Messiah could have had in the minds of the Jews of the generation of John and Jesus. *Messiah* could not possibly refer to one who merely taught God's will or proclaimed the necessity for righteous living. To all such holy persons the Jews gave the title of *prophet*. The Messiah was to be more than a prophet; the Messiah was to br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ingdom, the kingdom of God. No one who failed to do this could be the Messiah in the traditional Jewish sense.

135:5.7 (1500.7) Who would this Messiah be? Again the Jewish teachers differed. The older ones clung to the doctrine of the son of David. The newer taught that, since the new kingdom was a heavenly kingdom, the new ruler might also be a divine personality, one who had long sat at God's right hand in heaven. And strange as it may appear, those who thus conceived of the ruler of the new kingdom looked upon him not as a human Messiah, not as a mere *man*, but as “the Son of Man” — a Son of God — a heavenly Prince, long held in waiting thus to assume the rulership of the earth made new. Such was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Jewish world when John went forth proclaim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그러므로, 도래할 왕국에 대한 요한의 발표는, 그의 정열적인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6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하였던 구절들에게 그들이 어떤 의의들을 부여하였다 할지라도, 유대인-왕국을 기대하였던 이러한 여러 집단의 각 사람들은, 듣는 이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피”하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권하는, 세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진지하고 열렬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정의로움과 회개의 선포자에 매료되었다.

제 6 장. 설교를 시작한 요한

서기 25년 3월 초기에, 요한은 사해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여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올라가며 여행하였는데, 그 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건너 지나간 고대의 유서 깊은 곳 이었다; 그리고 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그는 강의 입구에 자기 자리를 잡았고 강을 넘어 오가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곳은 모든 요단강 건널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었다.

요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의 설교자 이상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였다. 유대 광야에서 온 이 이상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으면서 떠나갔다. 지친 가운데에서 기다리던 이 유대인의 혼들이 그러한 진지한 사람에 의해 깊게 선통되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모든 유대 역사 중에서, 믿음이 깊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갈망하거나 그렇게 열렬하게 “왕국의 회복”을 기다린 적은 결코 없었다. 모든 유대 역사에서, 요한이 전파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그가 요단강의 남쪽 독을 건너 신비하게 나타난 이때만큼, 심오하고도 보편적인 호소를 제시한 적도 결코 없었다.

그는 아모스처럼 목자 출신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옛날의 엘리야의 것과 같았고, “엘리야의 영과 힘”으로 자신의 훈계를 큰 소리로 외쳤고, 자신의 경고를 주창하였다. 여행자들이, 그가 요단강 주변에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멀리까지 전하게 되자, 이 이상한 설교자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굉장한 동요를 일으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나지르인인 이 설교자의 활동에는 아주 다른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를 믿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비록 세례가 유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한이 시행하는 방식을 본 적은 없었다. 이방인 중에서의 개종한 자들을 동료로서 성전 밖

heaven is at hand!”

^{135:5.8 (1500.8)} It becomes apparent, therefore, that John's announcement of the coming kingdom had not less than half a dozen different meanings in the minds of those who listened to his impassioned preaching. But no matter what significance they attached to the phrases which John employed, each of these various groups of Jewish-kingdom expectants was intrigued by the proclamations of this sincere, enthusiastic, rough-and-ready preacher of righteousness and repentance, who so solemnly exhorted his hearers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6. JOHN BEGINS TO PREACH

^{135:6.1 (1501.4)} Early in the month of March, A.D. 25, John journeyed around the western coast of the Dead Sea and up the river Jordan to opposite Jericho, the ancient ford over which Joshua and the children of Israel passed when they first entered the promised land; and crossing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river, he established himself near the entrance to the ford and began to preach to the people who passed by on their way back and forth across the river. This was the most frequented of all the Jordan crossings.

^{135:6.2 (1501.5)} It was apparent to all who heard John that he was more than a preacher. The great majority of those who listened to this strange man who had come up from the Judean wilderness went away believing that they had heard the voice of a prophet. No wonder the souls of these weary and expectant Jews were deeply stirred by such a phenomenon. Never in all Jewish history had the devout children of Abraham so longed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or more ardently anticipate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Never in all Jewish history could John'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ave made such a deep and universal appeal as at the very time he so mysteriously appeared on the bank of this southern crossing of the Jordan.

^{135:6.3 (1502.1)} He came from the herdsmen, like Amos. He was dressed like Elijah of old, and he thundered his admonitions and poured forth his warnings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strange preacher created a mighty stir throughout all Palestine as the travelers carried abroad the news of his preaching along the Jordan.

^{135:6.4 (1502.2)} There was still another and a new feature about the work of this Nazarite preacher: He baptized every one of his believers in the Jordan “for the remission of sins.” Although baptism was not a new ceremony among the Jews, they had never seen it employed as John now made use of it. It had long been the practice

의 정원에서 세례를 주던 실천 관행은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었지만, 유대인 자신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이 설교와 세례를 시작한 때부터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겨우 15개월의 기간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요한은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베다니 개울가에서 4개월 동안 설교하였다. 수만 명의 그의 경청자들 중에는, 호기심 때문에도 얼마 정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진정으로 진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유대, 페레아, 사마리아로부터 왔다. 그리고 얼마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오기도 하였다.

이 해 5월에 그가 아직도 베다니 여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지 그리고 누구의 권한에 의하여 설교를 하는지 물어 보기 위하여 그에게 대표단을 보내 왔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가로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하느님을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부드러운 골짜기가 될 것이요 모든 육신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노라고, 가서 너희의 주인들에게 전하라.”

요한은 용맹스럽기는 하였지만, 재치 없는 설교자였다. 어느 날, 그가 요단강의 서쪽 강둑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의 집단과 몇 명의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그들을 물로 인도하기 전에, 요한은 그 집단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경고하노니, 만약 너희가 속죄를 받아들이면 진지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합당한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운명이다.” (그가 언급한 12개의 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12 지파”들이 처음으로 언약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너 간 것의 표징을 위하여 바로 그 지점에 세워 놓았던 돌들이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위한 학급을 수행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려고 애썼다. 그는 그 선생들에게,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가르치도록 조언하였다. 그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일 것을 가르쳤으며; 세금 징수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thus to baptize the gentile proselytes into the fellowship of the outer court of the temple, but never had the Jews themselves been asked to submit to the baptism of repentance. Only fifteen months intervened between the time John began to preach and baptize and his arrest and imprisonment at the instigation of Herod Antipas, but in this short time he baptized considerably over one hundred thousand penitents.

135:6.5 (1502.3) John preached four months at Bethany ford before starting north up the Jordan. Tens of thousands of listeners, some curious but many earnest and serious, came to hear him from all parts of Judea, Perea, and Samaria. Even a few came from Galilee.

135:6.6 (1502.4) In May of this year, while he still lingered at Bethany ford, the priests and Levites sent a delegation out to inquire of John whether he claimed to be the Messiah, and by whose authority he preached. John answered these questioners by saying: “Go tell your masters that you have heard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as spoken by the prophet, saying, ‘make ready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brought low; the uneven ground shall become a plain, while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a smooth valley;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135:6.7 (1502.5) John was a heroic but tactless preacher. One day when he was preaching and baptizing on the west bank of the Jordan, a group of Pharisees and a number of Sadducees came forward and presented themselves for baptism. Before leading them down into the water, John, addressing them as a group said: “Who warned you to flee, as vipers before the fire, from the wrath to come? I will baptize you, but I warn you to bring forth fruit worthy of sincere repentance if you would receive the remission of your sins. Tell me not that Abraham is your father. I declare that God is able of these twelve stones here before you to raise up worthy children for Abraham. And even now is the ax laid to the very roots of the trees. Every tree that brings not forth good fruit is destined to be cut down and cast into the fire.” (The twelve stones to which he referred were the reputed memorial stones set up by Joshua to commemorate the crossing of the “twelve tribes” at this very point when they first entered the promised land.)

135:6.8 (1502.6) John conducted classes for his disciples, in the course of which he instructed them in the details of their new life and endeavored to answer their many questions. He counseled the teachers to instruct in the spirit as well as the letter of the law. He instructed the rich to feed the poor; to the tax gatherers he said: “Extort no more than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더 이상 건지 말라.” 그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그릇된 방법으로 강요하지 말라—너희의 보수에 만족하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하였다: “시대의 종말을 위해 준비하라—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제 7 장. 북쪽을 향한 요한의 여행

요한은 도래할 왕국과 그곳의 왕(王)에 대하여 여전히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가 설교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혼동을 겪었지만, 도래할 왕국의 성격에 관한 지적(知的) 불확실성이, 곧 도래할 왕국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그의 신념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하였다. 요한은 마음으로는 혼동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는 도래할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지만, 예수가 그 왕국의 통치자일지 아닐 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요한이 다윗의 왕좌의 복권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 왔던 해방자라는 자신의 부모의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가 영적 왕국의 교리와 지상의 일시적인 시대의 종말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갈수록, 그러한 사건에서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심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 어떤 때에는 그가 모든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는 실제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사촌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명백한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요한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예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는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 여행하며 12번 이상 멈추어 있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하는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은 아담에서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뒤에 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오시는데, 나는 엎드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속속들이 깨끗이 하려고 그의 손에 삽을 들고 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겠지만, 쟁쟁이는 심판의 불에 태우실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난날의 모호한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위로를 주는 내용을 매일 매일 더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넓혀가기를 계속하였다. 이 무렵에는, 군중들이 갈릴리와 데카폴리스로부터 몰려왔다. 날을 거듭하면서, 수십 명의 진지한 신도들이 자신들의 경모하는 선생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다.

제 8 장. 예수와 요한의 만남

that which is assigned you.” To the soldiers he said: “Do no violence and exact nothing wrongfully — be content with your wages.” While he counseled all: “Make ready for the end of the age —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7. JOHN JOURNEYS NORTH

^{135:7.1 (1503.1)} John still had confused ideas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its king. The longer he preached the more confused he became, but never did this intellectual uncertainty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coming kingdom in the least lessen his conviction of the certainty of the kingdom's immediate appearance. In mind John might be confused, but in spirit never. He was in no doubt about the coming kingdom, but he was far from certain as to whether or not Jesus was to be the ruler of that kingdom. As long as John held to the idea of the restoration of the throne of David, the teachings of his parents that Jesus, born in the City of David, was to be the long-expected deliverer, seemed consistent; but at those times when he leaned more toward the doctrine of a spiritual kingdom and the end of the temporal age on earth, he was sorely in doubt as to the part Jesus would play in such events. Sometimes he questioned everything, but not for long. He really wished he might talk it all over with his cousin, but that was contrary to their expressed agreement.

^{135:7.2 (1503.2)} As John journeyed north, he thought much about Jesus. He paused at more than a dozen places as he traveled up the Jordan. It was at Adam that he first made reference to “another one who is to come after me” in answer to the direct question which his disciples asked him, “Are you the Messiah?” And he went on to say: “There will come after me one who is greater than I, whose sandal strap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loose.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his shovel is in his hand thoroughly to cleanse his threshing floor; he will gather the wheat into his garner, but the chaff will he burn up with the judgment fire.”

^{135:7.3 (1503.3)}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of his disciples John continued to expand his teachings, from day to day adding more that was helpful and comforting compared with his early and cryptic message: “Repent and be baptized.” By this time throngs were arriving from Galilee and the Decapolis. Scores of earnest believers lingered with their adored teacher day after day.

8. MEETING OF JESUS AND JOHN

서기 25년 12월에 요한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며 펠라 근처에 왔을 즈음에는, 그의 명성이 온 팔레스타인에 퍼져 있었으며, 그의 활약은 갈릴리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이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예배종파에 참가하게 만들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이 펠라 근처에서 설교를 시작한 바로 직후인 12월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요한을 만나러 갔고, 그 복음전도자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직접-얻은 보고를 예수에게 하였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이제 유다가 안식일 예배봉사를 드리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유대회당에서 있었던 예수의 강연을 들은 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와 상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서기 26년 1월 12일 토요일 밤이었다. 예수는 논의를 내일로 미루자고 하였으며, 그 때 대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그날 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다. 그는 동생들과 점심을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에 대하여 조언하려고 계획하였다.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평상시와 같이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을 하였다. 야고보와 유다가 점심을 갖고 도착했지만 아직은 점심 휴식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재실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가 얼마나 규칙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점심 휴식시간 바로 전에 예수는 그의 연장들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었으며, 그와 함께 작업장에 있던 세 명의 일꾼들에게 오직 “이제 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만을 하였다. 그는 자기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나가서 “나의 때가 이르렀다—같이 요한에게로 가자.”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펠라를 향해 떠났고 점심은 여행 도중에 먹었다. 이것은 1월 13일 일요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요단 계곡에서 그 날 밤을 지냈고, 요한의 세례 주는 장소에는 다음 날 정오 무렵에 도착하였다.

요한은 그날의 지원자들에 대한 세례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수많은 회개자들이 그들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있었고, 예수와 그의 두 동생들도, 도래할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설교를 믿는 열성적인 남녀들의 대열 속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 관한 예수의 의견을 들었으며,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개종자들에게 빠른 시간에 세례를 주는 세세한 일들에 몰두하여, 요한은 사람의

135:8.1 (1503.4) By December of A.D. 25, when John reached the neighborhood of Pella in his journey up the Jordan, his fame had extended throughout all Palestine, and his work had become the chief topic of conversation in all the towns about the lake of Galilee. Jesus had spoken favorably of John's message, and this had caused many from Capernaum to join John's cult of repentance and baptism. James and John the fishermen sons of Zebedee had gone down in December, soon after John took up his preaching position near Pella, and had offered themselves for baptism. They went to see John once a week and brought back to Jesus fresh, firsthand reports of the evangelist's work.

135:8.2 (1503.5) Jesus' brothers James and Jude had talked about going down to John for baptism; and now that Jude had come over to Capernaum for the Sabbath services, both he and James, after listening to Jesus' discourse in the synagogue, decided to take counsel with him concerning their plans. This was on Saturday night, January 12, A.D. 26. Jesus requested that they postpone the discussion until the following day, when he would give them his answer. He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being in close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He had arranged to have noontime lunch with his brothers and to advise them concerning baptism by John. That Sunday morning Jesus was working as usual in the boatshop. James and Jude had arrived with the lunch and were waiting in the lumber room for him, as it was not yet time for the midday recess, and they knew that Jesus was very regular about such matters.

135:8.3 (1504.1) Just before the noon rest, Jesus laid down his tools, removed his work apron, and merely announced to the three workmen in the room with him, "My hour has come." He went out to his brothers James and Jude, repeating, "My hour has come — let us go to John." And they started immediately for Pella, eating their lunch as they journeyed. This was on Sunday, January 13. They tarried for the night in the Jordan valley and arrived on the scene of John's baptizing about noon of the next day.

135:8.4 (1504.2) John had just begun baptizing the candidates for the day. Scores of repentants were standing in line awaiting their turn when Jesus and his two brothers took up their positions in this line of earnest men and women who had become believers in John's preaching of the coming kingdom. John had been inquiring about Jesus of Zebedee's sons. He had heard of Jesus' remarks concerning his preaching, and he was day by day expecting to see him arrive on the scene, but he had not expected to greet him in the line of baptismal candidates.

135:8.5 (1504.3) Being engrossed with the details of rapidly baptizing such a large number of converts,

아들이 자신의 바로 앞에 나오기 전까지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육신의 사촌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그의식(儀式)은 잠시 정지되었으며 그는, “왜 당신이 나를 만나러 물속으로 내려오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는 요한에게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말대로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서 있는 내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때가 온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음성은 단호하고 권위가 서려있었다. 요한은 서기 26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전율하였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와 그의 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요한이 이들 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는 그날의 나머지 세례는 다음날 정오에 계속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아직도 물속에 서있었던 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며, 얼마안있어서 하나의 환영(幻影)이 잠깐 동안 예수의 머리 바로 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는 내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있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 예수의 용모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물에서 나와 그들을 떠났고 동쪽의 언덕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한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수없이 들어왔던,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게 해주었다. 요한은 예수에게 “이제 나는 당신이 해방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예수가 자기 길을 계속하여 가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 9 장. 40일간의 설교

요한이 자기 제자들(그 당시에 약 25-30 명가량의 그와 항상 함께 거주하던)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요한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을 때, 또한 그가 이 사실을 예수에게 말해 주었는데도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그들은 더욱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30여명 되는 이 사람들은 별 빛 아래에서 밤늦도록 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John did not look up to see Jesus until the Son of Man stood in his immediate presence. When John recognized Jesus, the ceremonies were halted for a moment while he greeted his cousin in the flesh and asked, “But why do you come down into the water to greet me?” And Jesus answered, “To be subject to your baptism.” John replied: “But I have need to be baptized by you. Why do you come to me?” And Jesus whispered to John: “Bear with me now, for it becomes us to set this example for my brothers standing here with me, and that the people may know that my hour has come.”

135:8.6 (1504.4) There was a tone of finality and authority in Jesus' voice. John was atremble with emotion as he made ready to baptize Jesus of Nazareth in the Jordan at noon on Monday, January 14, A.D. 26. Thus did John baptize Jesus and his two brothers James and Jude. And when John had baptized these three, he dismissed the others for the day, announcing that he would resume baptisms at noon the next day. As the people were departing, the four men still standing in the water heard a strange sound, and presently there appeared for a moment an apparition immediately over the head of Jesus, and they heard a voice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A great change came over the countenance of Jesus, and coming up out of the water in silence he took leave of them, going toward the hills to the east. And no man saw Jesus again for forty days.

135:8.7 (1504.5) John followed Jesus a sufficient distance to tell him the story of Gabriel's visit to his mother ere either had been born, as he had heard it so many times from his mother's lips. He allowed Jesus to continue on his way after he had said, “Now I know of a certainty that you are the Deliverer.” But Jesus made no reply.

9. FORTY DAYS OF PREACHING

135:9.1 (1505.1) When John returned to his disciples (he now had some twenty-five or thirty who abode with him constantly), he found them in earnest conference, discussing what had just happened in connection with Jesus' baptism. They were all the more astonished when John now made known to them the story of the Gabriel visitation to Mary before Jesus was born, and also that Jesus spoke no word to him even after he had told him about this. There was no rain that evening, and this group of thirty or more talked long into the starlit night. They wondered where Jesus had gone, and when they would see him again.

이 날의 체험 이후에, 요한의 설교는 도래할 왕국과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하여 새롭고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40일 기간은 매우 긴장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였으며, 이 무렵에는 요한을 둘러싸고 요단강에 모여드는 넘쳐흐르는 군중들에게 그의 제자들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40일 동안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소문들이 그 근방으로 퍼졌고, 그 소문들은 티베리아스와 예루살렘까지도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야영지에 있다는 새로운 흥밋거리인,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보려고 모여들었지만,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상한 하느님의 사람이 산으로 갔다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의심하였다.

예수가 떠난 지 약 3주일 후에,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의 새로운 대표단이 펠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당신은 메시아인가?”라고 대답하게 물었고,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만일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며 이 모든 동요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세례를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에,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우리중의 한 분이 돌아올 것이다.”

40일의 이 기간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예수에게 요한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정치적 흥정과 이기적인 자리다툼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과 개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들이 일어났다. 그가 집단의 영도자가 되어 다윗의 왕좌를 이을 것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사람들을 취했던 것과 같이, 그는 로마 집단을 무찌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왕국을 세우려 올 것인가? 요한 자신도 하늘의 왕국의 설립에 관한 임무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왔다는 소수 의견의 편에 서있었다.

이러한 날들은 요한의 체험에서 격렬한 나날들이었으며, 그는 예수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를 찾기 위한 정찰대를 조직하였으나, 요한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때는 하늘의 하느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느님께서 그의 선택된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2월 23일 안식일 이른 아침에, 요한의 무리들

135:9.2 (1505.2) After the experience of this day the preaching of John took on new and certain notes of proclamation concerning the coming kingdom and the expected Messiah. It was a tense time, these forty days of tarrying, waiting for the return of Jesus. But John continued to preach with great power, and his disciples began at about this time to preach to the overflowing throngs which gathered around John at the Jordan.

135:9.3 (1505.3) In the course of these forty days of waiting, many rumors spread about the countryside and even to Tiberias and Jerusalem. Thousands came over to see the new attraction in John's camp, the reputed Messiah, but Jesus was not to be seen. When the disciples of John asserted that the strange man of God had gone to the hills, many doubted the entire story.

135:9.4 (1505.4) About three weeks after Jesus had left them, there arrived on the scene at Pella a new deputation from the priests and Pharisees at Jerusalem. They asked John directly if he was Elijah or the prophet that Moses promised; and when John said, "I am not," they made bold to ask, "Are you the Messiah?" and John answered, "I am not." Then said these men from Jerusalem: "If you are not Elijah, nor the prophet, nor the Messiah, then why do you baptize the people and create all this stir?" And John replied: "It should be for those who have heard me and received my baptism to say who I am, but I declare to you that, while I baptize with water, there has been among us one who will return to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135:9.5 (1505.5) These forty days were a difficult period for John and his disciples. What was to be the relation of John to Jesus? A hundred questions came up for discussion. Politics and selfish preferment began to make their appearance. Intense discussions grew up around the various ideas and concepts of the Messiah. Would he become a military leader and a Davidic king? Would he smite the Roman armies as Joshua had the Canaanites? Or would he come to establish a spiritual kingdom? John rather decided, with the minority, that Jesus had com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although he was not altogether clear in his own mind as to just what was to be embraced within this 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135:9.6 (1505.6) These were strenuous days in John's experience, and he prayed for the return of Jesus. Some of John's disciples organized scouting parties to go in search of Jesus, but John forbade, saying: "Our times are in the hands of the God of heaven; he will direct his chosen Son."

135:9.7 (1505.7) It was early on the morning of

은 아침식사를 하는 중에 북쪽을 바라보다가 예수 가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자, 요한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그의 우렁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 “세상의 해방자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광야로부터 나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고 계시다. 나는 성령이 이 분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다.”

자신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이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과 둘이 앉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식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는 언제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었다. 자신의 설교와 사명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이제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들 두 위대한 사람들은 그 날 아침 요단강 강변에서 헤어졌으며, 육신으로서는 서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제 10 장. 남쪽으로 여행한 요한

예수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갔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3월 3일 일요일 아침에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남쪽으로 그들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에 요한의 직계 제자들 중 사분의 일은 예수를 찾아서 갈릴리로 떠났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요한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 슬픈 일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그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기 이전에 행했던 것과 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래할 왕국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일은 거의 완결된 것 같이 느껴졌으며; 마음 둘 곳을 잃었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면서 남쪽으로 여행하였다.

아담이라는 마을 가까이에서 요한은 여러 주간 동안 머물렀으며,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 이곳에서 기억에 남을 공격을 하였다. 이 해(서기 26년) 6월경에, 요한은 1년 전에, 도래할 왕국에 대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였던 곳인, 요단강의 베다니 개울가로 돌아와 있었다. 예수께 세례를 베푼 이후의 주간들 중에는, 요한의 설교 성격이 점차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선포로 바뀌어 갔으며, 반면에 그는 다시 격렬한 태도로 부패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통치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Sabbath, February 23, that the company of John, engaged in eating their morning meal, looked up toward the north and beheld Jesus coming to them. As he approached them, John stood upon a large rock and, lifting up his sonorous voice, said: “Behold the Son of God, the deliverer of the world! This is he of whom I have said, ‘After me there will come one who is preferred before me because he was before me.’ For this cause came I out of the wilderness to preach repentance and to baptize with water, proclaiming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now comes one who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I beheld the divine spirit descending upon this man, and I heard the voice of God declare,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135:9.8 (1506.1) Jesus bade them return to their food while he sat down to eat with John, his brothers James and Jude having returned to Capernaum.

135:9.9 (1506.2) Early in the morning of the next day he took leave of John and his disciples, going back to Galilee. He gave them no word as to when they would again see him. To John's inquiries about his own preaching and mission Jesus only said, “My Father will guide you now and in the future as he has in the past.” And these two great men separated that morning on the banks of the Jordan, never again to greet each other in the flesh.

10. JOHN JOURNEYS SOUTH

135:10.1 (1506.3) Since Jesus had gone north into Galilee, John felt led to retrace his steps southward. Accordingly, on Sunday morning, March 3, John and the remainder of his disciples began their journey south. About one quarter of John's immediate followers had meantime departed for Galilee in quest of Jesus. There was a sadness of confusion about John. He never again preached as he had before baptizing Jesus. He somehow fel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ing kingdom was no longer on his shoulders. He felt that his work was almost finished; he was disconsolate and lonely. But he preached, baptized, and journeyed on southward.

135:10.2 (1506.4) Near the village of Adam, John tarried for several weeks, and it was here that he made the memorable attack upon Herod Antipas for unlawfully taking the wife of another man. By June of this year (A.D. 26) John was back at the Bethany ford of the Jordan, where he had begun his preaching of the coming kingdom more than a year previously. In the weeks following the baptism of Jesus the character of John's preaching gradually changed into a proclamation of mercy for the common people, while he denounced with

요한은 헤롯의 행정구역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와 그의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경계하게 되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국내 관련사들에 대한 요한의 공개적인 비난에 화가 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6월 12일 이른 아침,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주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기 전에, 헤롯의 부하들이 요한을 체포하였다. 여러 주가 지나도 그가 석방되지 않게 되자, 그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세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

제 11 장. 감옥에 갇힌 요한

요한은 감옥에서 다소간 쓰라리고 외로운 체험을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매우 만나보고 싶어 하였지만,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되었던 자신의 추종자들의 입을 통해 오직 그의 업적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야 했다. 그는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유혹되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 건디기 어려운 감옥살이에서 자기를 구해 주지 않는 것일까? 하느님의 광야에서 우락부락했던 이 사람은 그 경멸스러운 감옥에서 일 년 반 이상동안 시들어갔다. 그리고 이 체험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신앙과 충성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 진정으로 이 모든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의 순수성까지도 의심하려는 유혹에 여러 번이나 빠졌었다.

감옥에서 여러 달을 지낸 후, 요한의 제자들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왔으며, 그들은 예수의 대중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보고를 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사람이 번영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감하게 증거하였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당신의 해방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내가 말하였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하였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곁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기쁨을 향유하는 법이니, 나에게서는 이러한 기쁨이 충분하였다. 그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고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모두들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靈)을

renewed vehemence the corrupt political and religious rulers.

135:10.3 (1506.5) Herod Antipas, in whose territory John had been preaching, became alarmed lest he and his disciples should start a rebellion. Herod also resented John's public criticisms of his domestic affairs. In view of all this, Herod decided to put John in prison. Accordingly, very early in the morning of June 12, before the multitude arrived to hear the preaching and witness the baptizing, the agents of Herod placed John under arrest. As weeks passed and he was not released, his disciples scattered over all Palestine, many of them going into Galilee to join the followers of Jesus.

11. JOHN IN PRISON

135:11.1 (1506.6) John had a lonely and somewhat bitter experience in prison. Few of his followers were permitted to see him. He longed to see Jesus but had to be content with hearing of his work through those of his followers who had become believers in the Son of Man. He was often tempted to doubt Jesus and his divine mission. If Jesus were the Messiah, why did he do nothing to deliver him from this unbearable imprisonment? For more than a year and a half this rugged man of God's outdoors languished in that despicable prison. And this experience was a great test of his faith in, and loyalty to, Jesus. Indeed, this whole experience was a great test of John's faith even in God. Many times was he tempted to doubt even the genuineness of his own mission and experience.

135:11.2 (1507.1) After he had been in prison several months, a group of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after reporting concerning the public activities of Jesus, said: “So you see, Teacher, that he who was with you at the upper Jordan prospers and receives all who come to him. He even feasts with publicans and sinners. You bore courageous witness to him, and yet he does nothing to effect your deliverance.” But John answered his friends: “This man can do nothing unless it has been given him by his Father in heaven. You well remember that I said, ‘I am not the Messiah, but I am one sent on before to prepare the way for him.’ And that I did. 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near by and hears him 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is, my joy, therefore is fulfilled.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 am of this earth and have declared my message. Jesus of Nazareth comes down to the earth from heaven and is above us all. The Son of Man has descended from God, and the words of God he will declare to you. For the Father in heaven gives not the spirit by measure to his own Son. The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말들은 진리이고 영구적인 것이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그들 모두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갔다. 요한 역시 몹시 동요되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언의 말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다시는 결코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마디의 전갈도 그에게 보내지 않는 점과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점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점은 그에게 비통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렇지만 예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요한을 매우 사랑하였으나, 이제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땅에서의 요한의 일은 이제 완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설교자-선지자의 생애의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데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을 자제하였다.

감옥에서의 이러한 긴 불안 상태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은 예수에게 믿음만한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물었다: “나의 일은 끝난 것입니까? 왜 나는 감옥에서 괴로워해야만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들 두 제자들이 이 전갈을 예수께 전했을 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 이것이 나 또한 고통이며, 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정의(正義)를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라.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지상 사명에서의 귀한 전령에게, 만약 그가 나를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는 장차 다가 올 시대에서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전해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아들이는 마지막 말이었다. 이 메시지는 그를 매우 안심시켰으며,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었고, 이 기억할 만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그의 육신의 일생의 비극적인 종말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었다.

Father loves his Son and will presently put all things in the hands of this Son.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And these words which I speak are true and abiding.”

135:11.3 (1507.2) These disciples were amazed at John's pronouncement, so much so that they departed in silence. John was also much agitated, for he perceived that he had uttered a prophecy. Never again did he wholly doubt the mission and divinity of Jesus. But it was a sore disappointment to John that Jesus sent him no word, that he came not to see him, and that he exercised none of his great power to deliver him from prison. But Jesus knew all about this. He had great love for John, but being now cognizant of his divine nature and knowing fully the great things in preparation for John when he departed from this world and also knowing that John's work on earth was finished, he constrained himself not to interfere in the natural outworking of the great preacher-prophet's career.

135:11.4 (1507.3) This long suspense in prison was humanly unbearable. Just a few days before his death John again sent trusted messengers to Jesus, inquiring: “Is my work done? Why do I languish in prison? Are you truly the Messiah,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And when these two disciples gave this message to Jesus, the Son of Man replied: “Go back to John and tell him that I have not forgotten but to suffer me also this, for it becomes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 that the poor have good tidings preached to them — and, finally, tell the beloved herald of my earth mission that he shall be abundantly blessed in the age to come if he finds no occasion to doubt and stumble over me.” And this was the last word John received from Jesus. This message greatly comforted him and did much to stabilize his faith and prepare him for the tragic end of his life in the flesh which followed so soon upon the heels of this memorable occasion.

제 12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요한이 남쪽 페레아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바로 마케루스의 요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처형을 당할 때까지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헤롯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페레아도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페레아에서 줄리아스와 마케루스 두 군데에 거처(居處)를 가지고 있었다. 갈릴리에 있는 공관은, 세포리로 부터 수도인 티베리아스로 옮겼다.

헤롯은 요한이 반란을 선동할까 염려하여 그를 석방하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페레아인들이 요한을 선지자인 신성한 자로 여겼기 때문

12. DEATH OF JOHN THE BAPTIST

135:12.1 (1508.1) As John was working in southern Perea when arrested, he was taken immediately to the prison of the fortress of Machaerus, where he was incarcerated until his execution. Herod ruled over Perea as well as Galilee, and he maintained residence at this time at both Julias and Machaerus in Perea. In Galilee the official residence had been moved from Sepphoris to the new capital at Tiberias.

135:12.2 (1508.2) Herod feared to release John lest he instigate rebellion. He feared to put him to death lest the multitude riot in the capital, for thousands

에 그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헤롯은 그를 다른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그 나지르인 설교자를 그냥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요한은 여러 차례 헤롯 앞에 불러 갔었지만, 만약 석방되는 경우라도 자기가 헤롯의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모든 공공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게다가 계속하여 자라나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새로운 민심의 동요는, 요한을 풀어주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헤롯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헤롯의 불륜의 아내인 헤로디아스의 미움을 매우 심하게 받고 있었다.

헤롯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요한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어떤 때에는 요한의 메시지에 매우 감명을 받기도 하였지만, 요한을 석방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티베리아스에서 아직도 많은 건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페레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마케루스 요새를 특히 좋아하였다. 그때는 티베리아스에 있는 공공 건물들과 관저가 충분히 완료가 몇 년 전이었다.

그의 생일 축하를 위해 헤롯은 갈릴리와 페레아의 높은 관료(官僚)들과 자신의 대신(大臣)들을 마케루스의 궁전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 헤로디아스는 헤롯에게 요한을 죽여 달라는 자신의 직접적인 청원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간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직접 나섰다.

헤로디아스는 저녁 축제들과 연회의 순서 속에 자기 딸을 연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도록 추천하였다. 헤롯은 계집아이의 연기에 매우 심히 기분이 좋아졌으며 그녀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매우 매력적이구나. 나는 너로 하여 매우 기쁘다. 나의 생일인 오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헤롯은 술이 몹시 취해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다. 젊은 부인은 물러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헤롯에게 구할 것인가를 물었다. 헤로디아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헤롯에게 가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리고 젊은 여인은 연회 식탁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헤롯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병정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졌고, 병정은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것을 연회장 뒤에서 젊은 여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집아이는 소반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시체를 가지러 감옥으로 왔으며, 그들은 요한을 무덤에 묻은 후에 예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of Pereans believed that John was a holy man, a prophet. Therefore Herod kept the Nazarite preacher in prison, not knowing what else to do with him. Several times John had been before Herod, but never would he agree either to leave the domains of Herod or to refrain from all public activities if he were released. And this new agitation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ich was steadily increasing, admonished Herod that it was no time to turn John loose. Besides, John was also a victim of the intense and bitter hatred of Herodias, Herod's unlawful wife.

135:12.3 (1508.3) On numerous occasions Herod talked with John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while sometimes seriously impressed with his message, he was afraid to release him from prison.

135:12.4 (1508.4) Since much building was still going on at Tiberias, Herod spent considerable time at his Perea residences, and he was partial to the fortress of Machaerus. It was a matter of several years before all the public buildings and the official residence at Tiberias were fully completed.

135:12.5 (1508.5) In celebration of his birthday Herod made a great feast in the Machaerian palace for his chief officers and other men high in the councils of the government of Galilee and Perea. Since Herodias had failed to bring about John's death by direct appeal to Herod, she now set herself to the task of having John put to death by cunning planning.

135:12.6 (1508.6) In the course of the evening's festivities and entertainment, Herodias presented her daughter to dance before the banqueters. Herod was very much pleased with the damsel's performance and, calling her before him, said: “You are charming. I am much pleased with you. Ask me on this my birthday for whatever you desire, and I will give it to you, even to the half of my kingdom.” And Herod did all this while well under the influence of his many wines. The young lady drew aside and inquired of her mother what she should ask of Herod. Herodias said, “Go to Herod and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And the young woman, returning to the banquet table, said to Herod, “I request that you forthwith give me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135:12.7 (1508.7) Herod was filled with fear and sorrow, but because of his oath and because of all those who sat at meat with him, he would not deny the request. And Herod Antipas sent a soldier, commanding him to bring the head of John. So was John that night beheaded in the prison, the soldier bringing the head of the prophet on a platter and presenting it to the young woman at the rear of the banquet hall. And the damsel gave the platter to her mother. When John's disciples heard of this, they came to the prison for the body of John, and after laying it in a tomb, they went and told

Jesus.

제 136 편 세례와 40일

⇨ 135

유랜시아 책

13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6 편 세례와 40일

섹션

소개

- 제 1 장. 기대하던 메시아의 개념
- 제 2 장. 예수의 세례
- 제 3 장. 40일
- 제 4 장. 대중을 위한 일에 대한 계획
- 제 5 장. 첫 번째의 중대한 결정
- 제 6 장. 두 번째 결정
- 제 7 장. 세 번째 결정
- 제 8 장. 네 번째 결정
- 제 9 장. 다섯 번째 결정
- 제 10 장. 여섯 번째 결정

PAPER 136

BAPTISM AND THE FORTY DAYS

SECTIONS

Introduction

- 1.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 2. The Baptism of Jesus
- 3. The Forty Days
- 4. Plans for Public Work
- 5. The First Great Decision
- 6. The Second Decision
- 7. The Third Decision
- 8. The Fourth Decision
- 9. The Fifth Decision
- 10. The Sixth Decision

소개

예수는, 요한의 설교에 대중적 관심이 절정에 달하여 있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대중을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요한과 예수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요한은 열성적이고 그리고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는 침착하고 행복한 일꾼이었다; 그의 온 일생 동안 단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결코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 예수는 세상에 게 위로를 가져온 위로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본보기였으나; 요한은 거의 위로자 또는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의 왕국을 전파하였지만 그로 인한 행복의 세계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가 요한을 구(舊)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호평하였지만, 그는 또한 새로운 길이 되는 위대한 빛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기도 하였다.

요한이 다가오는 왕국을 전파하였을 때, 그의 메시지의 중점은: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진노(震怒)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가 설교

INTRODUCTION

136:0.1 (1509.1) JESUS began his public work at the height of the popular interest in John's preaching and at a time when the Jewish people of Palestine were eagerly look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ere was a great contrast between John and Jesus. John was an eager and earnest worker, but Jesus was a calm and happy laborer; only a few times in his entire life was he ever in a hurry. Jesus was a comforting consolation to the world and somewhat of an example; John was hardly a comfort or an example. He preached the kingdom of heaven but hardly entered into the happiness thereof. Though Jesus spoke of John as the greatest of the prophets of the old order, he also said that the least of those who saw the great light of the new way and entered thereby into the kingdom of heaven was indeed greater than John.

136:0.2 (1509.2) When John preached the coming kingdom, the burden of his message was: Repent! flee from the wrath to come. When Jesus began

를 시작하였을 때, 회개하라는 권고는 같았지만, 그러한 메시지 뒤에는 새로운 왕국의 기쁨과 해방의 행복한 소식인 복음이 항상 따라왔다.

제 1 장. 기대하던 메시아의 개념

유대인들은 고대하는 해방자에 관한 많은 관념들을 갖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가르치는 이들 여러 다른 학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히브리 경전의 문구들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와 하느님의 왕국인 새 시대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기에는 이 해방자를 “주님의 하인”으로 정지하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또한 더 후대에는 메시아를 “하느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하였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로 칭하였나를 막론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메시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 개념은 “주님의 하인”으로부터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로까지 발전되었다.

요한과 예수 시절에 활동하던 좀 더 유식한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에 관한 관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완전케 하는 존재, 선지자와 사제 그리고 왕이라는 삼중적 직책이 그의 안에서 합쳐진 “주님의 하인”으로 발전시켰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선조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기적적인 경이로움으로 구했던 것 같이, 곧 오실 메시아는 더욱 더 큰 기적의 힘과 인종적 승리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유대 백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열렬하게 믿어왔다. 랍비들은, 분명한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그들이 단언하는, 거의 500 페이지가 넘는 성서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기법, 기능의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개인성에 대한 시각은 거의 완벽하게 등한시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는 유대의 민족적 영광—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지위 향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러한 세속적인 메시아의 개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예언적인 이 언질들을 그들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었다라면, 그들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들 대부분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자비와 구원에 대한 새롭고도 더 나은 섭리시대를 시작하는 자로 예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매우 자연스럽게 준비시켰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후광(後光)의 교리를 믿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신성한 현존에 대

to preach, there remained the exhortation to repentance, but such a message was always followed by the gospel, the good tidings of the joy and liberty of the new kingdom.

1.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136:1.1 (1509.3) The Jews entertained many ideas about the expected deliverer, and each of these different schools of Messianic teaching was able to point to statements in the Hebrew scriptures as proof of their contentions. In a general way, the Jews regarded their national history as beginning with Abraham and culminating in the Messiah and the new age of the kingdom of God. In earlier times they had envisaged this deliverer as “the servant of the Lord,” then as “the Son of Man,” while latterly some even went so far as to refer to the Messiah as the “Son of God.” But no matter whether he was called the “seed of Abraham” or “the son of David,” all were agreed that he was to be the Messiah, the “anointed one.” Thus did the concept evolve from the “servant of the Lord” to the “son of David,” “Son of Man,” and “Son of God.”

136:1.2 (1509.4) In the days of John and Jesus the more learned Jews had developed an idea of the coming Messiah as the perfected and representative Israelite, combining in himself a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threefold office of prophet, priest, and king.

136:1.3 (1509.5) The Jews devoutly believed that, as Moses had delivered their fathers from Egyptian bondage by miraculous wonders, so would the coming Messiah deliver the Jewish people from Roman domination by even greater miracles of power and marvels of racial triumph. The rabbis had gathered together almost five hundred passages from the Scriptures which, notwithstanding their apparent contradictions, they averred were prophetic of the coming Messiah. And amidst all these details of time, technique, and function, they almost completely lost sight of the *personality* of the promised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a restoration of Jewish national glory — Israel’s temporal exaltation — rather than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It therefore becomes evident that Jesus of Nazareth could never satisfy this materialistic Messianic concept of the Jewish mind. Many of their reputed Messianic predictions, had they but viewed these prophetic utterances in a different light, would have very naturally prepared their minds for a recognition of Jesus as the terminator of one age and the inaugurator of a new and better dispensation of mercy and salvation for all nations.

136:1.4 (1510.1) The Jews had been brought up to believe in the doctrine of the *Shekinah*. But this reputed symbol of the Divine Presence was not to

한 이 유명한 상징은 성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곧 오실 메시아가 그것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족적 죄와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인간종족을 저주받게 하였는데, 메시아가 이러한 저주를 없애 주고 신성한 호의로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가르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의 선과 악의 속성을 모두 불어넣었다고 가르쳤으며; 그가 이러한 일의 결과를 보고 매우 실망하셨으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은, 이러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악한 본성을 사람으로부터 없애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의 반신반의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계속하여 쇠약해지고 있다고 믿었다. 유대 민족은 아직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회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요한이 설교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힘차고 즉각적인 호소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어떤 열렬한 유대인에게라도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의 뜻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였다.

미가엘 증여에 있어서, 유대 메시아의 개념과 매우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두 본성의 연합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완전한 인간, 초인간, 그리고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인간 개념을 초기의 선지자들이 제시하였던 대로, 다윗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다니엘과 후반기의 여러 선지자들에서의 초인간 관념으로; 에녹서의 저자나 그의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에 의해 묘사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두 가지의 본성이 이 세상의 한 개인성으로 연합한다는 참된 개념을 고려해본 적은 결코 한 순간도 없었다. 창조체의 형상으로 창조자가 육신화 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계시되었다; 창조자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영역의 필사자 가운데에 거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그러한 일을 알 수 없었다.

be seen in the temple. They believed that the coming of the Messiah would effect its restoration. They held confusing ideas about racial sin and the supposed evil nature of man. Some taught that Adam's sin had cursed the human race, and that the Messiah would remove this curse and restore man to divine favor. Others taught that God, in creating man, had put into his being both good and evil natures; that when he observed the outworking of this arrangement, he was greatly disappointed, and that “He repented that he had thus made man.” And those who taught this believed that the Messiah was to come in order to redeem man from this inherent evil nature.

136:1.5 (1510.2) The majority of the Jews believed that they continued to languish under Roman rule because of their national sins and because of the halfheartedness of the gentile proselytes. The Jewish nation had not wholeheartedly repented; therefore did the Messiah delay his coming. There was much talk about repentance; wherefore the mighty and immediate appeal of John's preaching, “Repent and be baptized,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the kingdom of heaven could mean only one thing to any devout Jew: The coming of the Messiah.

136:1.6 (1510.3) There was one feature of the bestowal of Michael which was utterly foreign to the Jewish conception of the Messiah, and that was the *union* of the two natures,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Jews had variously conceived of the Messiah as perfected human, superhuman, and even as divine, but they never entertained the concept of the *union* of the human and the divine. And this was the great stumbling block of Jesus' early disciples. They grasped the human concept of the Messiah as the son of David, as presented by the earlier prophets; as the Son of Man, the superhuman idea of Daniel and some of the later prophets; and even as the Son of God, as depicted by the author of the Book of Enoch and by certain of his contemporaries; but never had they for a single moment entertained the true concept of the union in one earth personality of the two natures,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incarnation of the Creator in the form of the creature had not been revealed beforehand. It was revealed only in Jesus; the world knew nothing of such things until the Creator Son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the mortals of the realm.

제 2 장. 예수의 세례

예수는, 요한의 설교가 절정에 달하여 팔레스타인이 그의 메시지—“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붙고, 온 유대가 심각하고 엄숙하게 자아-검증을 할 당시에, 세례를 받

2. THE BAPTISM OF JESUS

136:2.1 (1510.4) Jesus was baptized at the very height of John's preaching when Palestine was aflame with the expectancy of his message —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 when all Jewry was

았다. 유대인들의 인종적 연대감은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한 개별존재의 죄가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사람들 모두가, 요한이 비난하였던 특정한 죄를 자신들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지연될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죄가 있고 죄로 저주받은 민족에 속해 있다고 느꼈으므로, 스스로 세례를 받으러 나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종족적 참회의 결실이 현시하리라고 기대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개의 의식이나 죄 사함을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요한의 손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가 많은 독실한 유대인들의 본보기를 따른 것에 불과하였다.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마음의 정복에 관계되는 그리고 영과 함께하는 자아-정체화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의 진화적 상승의 정점을 이미 달성한, 영역의 필사자이었다. 그는 그 날,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상들 속에서 하나의 완전하게 된 필사자로 요단강에 그렇게 섰다. 완전한 동조와 충만한 교통이, 예수의 필사자의 마음과,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 곧 내주(內住)하는 영 조절자 사이에 확립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예수의 조절자가 이러한 특별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에 비슷한 방법으로 필사자의 몸으로 와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하나의 초인간 안에 내주하였던 일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러한 조절자가, 미가엘이 자기 우주의 우두머리 신분으로 상승한 이후부터,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정상 존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영역에 있는 한 필사자가 그렇게 높은 개인성의 완전함의 차원을 이루게 될 경우에, 거기에는 필사자의 성숙한 혼이 그와 연관된 신성한 조절자와의 결국 생겨나는 융합으로 종결되는 영적 상승의 예비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예수가 두 동생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가신 그 날에 나사렛 예수의 개인성 체험 속에서 일어나도록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이 의식(儀式)은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순수하게 인간 자신의 일생을 끝내는 마지막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초인간적 관찰자들은 조절자가 자신이 내주하고 있던 마음과 연관하는 것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고 더 큰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손을 예수 위에 얹자, 내주하던 조절자가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의 완전해진 인간 혼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신성한 실존개체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되어 신성별로부터 돌아왔는데, 그는 네바돈에 있는 전체 지역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였다. 그렇게 예수는 그 자신의 이전의 신성한 영

engaged in serious and solemn self-examination. The Jewish sense of racial solidarity was very profound. The Jews not only believed that the sins of the father might afflict his children, but they firmly believed that the sin of one individual might curse the nation. Accordingly, not all who submitted to John's baptism regarded themselves as being guilty of the specific sins which John denounced. Many devout souls were baptized by John for the good of Israel. They feared lest some sin of ignorance on their part might delay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y felt themselves to belong to a guilty and sin-cursed nation, and they presented themselves for baptism that they might by so doing manifest fruits of race penitence. It is therefore evident that Jesus in no sense received John's baptism as a rite of repentance or for the remission of sins. In accepting baptism at the hands of John, Jesus was only following the example of many pious Israelites.

136:2.2 (1511.1) When Jesus of Nazareth went down into the Jordan to be baptized, he was a mortal of the realm who had attained the pinnacle of human evolutionary ascension in all matters related to the conquest of mind and to self-identification with the spirit. He stood in the Jordan that day a perfected mortal of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Perfect synchrony and full communication had become established between the mortal mind of Jesus and the indwelling spirit Adjuster, the divine gift of his Father in Paradise. And just such an Adjuster indwells all normal beings living on Urantia since the ascension of Michael to the headship of his universe, except that Jesus' Adjuster had been previously prepared for this special mission by similarly indwelling another superhuman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Machiventa Melchizedek.

136:2.3 (1511.2) Ordinarily, when a mortal of the realm attains such high levels of personality perfection, there occur those preliminary phenomena of spiritual elevation which terminate in eventual fusion of the matured soul of the mortal with its associated divine Adjuster. And such a change was apparently due to take place in the personality experience of Jesus of Nazareth on that very day when he went down into the Jordan with his two brothers to be baptized by John. This ceremony was the final act of his purely human life on Urantia, and many superhuman observers expected to witness the fusion of the Adjuster with its indwelt mind, but they were all destined to suffer disappointment. Something new and even greater occurred. As John laid his hands upon Jesus to baptize him, the indwelling Adjuster took final leave of the perfected human soul of Joshua ben Joseph. And in a few moments this divine entity returned from Divinington as a Personalized Adjuster and chief of his kind throughout the entire local universe of Nebadon. Thus did Jesus observe his own former divine spirit descending on

이 개인성구현된 형태로 자기에게로 되돌아 내려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의 두 동생들과 요한도 역시 이 말을 들었다. 물가에 서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였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출현도 또한 보지 못하였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이제는 고귀한 신분이 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 네 명이 물속에 머무는 동안, 예수는 가까이 있는 조절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가 육신을 입고 필사자로 내려오기 전의 자신의 모습과, 그가 육신화된 일생이 완결되고 난 후의 그의 모습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환영(幻影)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해 제시되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하늘의 환영은 오직 예수께만 제시되었다.

요한과 예수가 들었던 것은, 우주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했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음성이었는데, 왜냐하면 조절자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일부이고, 아버지로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예수의 나머지 일생을 통하여, 이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연관하였다; 예수는 고귀한 신분이 된 이 조절자와 항상 교제하였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무런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다; 아무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 하고자 헌신하는 세례였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호출인 아버지의 명백한 부르심을 들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 위하여 40일 동안 떠났던 것이다. 예수는 그의 지상의 친지들과의 직접적인 개인적 만남을 그렇게 얼마동안 피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모른시아 세상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 아버지의 내적 현존과 융합할 때마다 거치는 바로 그 과정을 유란시아에서 체험하였다.

이 세례의 날이 예수의 순수하게 인간으로서의 일생을 끝 마쳤다. 신성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발견하였고, 하느님 아버지는 자신의 육신화한 아들을 발견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당시에, 거의 31살 만이었다. 누가는 티베리우스 시제가 15년째 왕위에 있을 때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므로, 그것은 서기 29년이 되어야 하는데, 티베리우스는 서기 11년 10월에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을 주조하였고, 아우구스투스와 2년 반 동안 함께 황제로 있었다. 따라

its return to him in personalized form. And he heard this same spirit of Paradise origin now speak,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And John, with Jesus’ two brothers, also heard these words. John’s disciples, standing by the water’s edge, did not hear these words, neither did they see the appari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nly the eyes of Jesus beheld the Personalized Adjuster.

136:2.4 (1511.3) When the returned and now exalted Personalized Adjuster had thus spoken, all was silence. And while the four of them tarried in the water, Jesus, looking up to the near-by Adjuster, prayed: “My Father who reign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When he had praye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Son of Man saw the vision, presented by the now Personalized Adjuster, of himself as a Son of God as he was before he came to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as he would be when the incarnated life should be finished. This heavenly vision was seen only by Jesus.

136:2.5 (1512.1) It was the voi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that John and Jesus heard, speaking in behalf of the Universal Father, for the Adjuster is of, and as, the Paradise Father. Throughout the remainder of Jesus’ earth life this Personalized Adjuster was associated with him in all his labors; Jesus was in constant communion with this exalted Adjuster.

136:2.6 (1512.2) When Jesus was baptized, he repented of no misdeeds; he made no confession of sin. His was the baptism of consecr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At his baptism he heard the unmistakable call of his Father, the final summons to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and he went away into private seclusion for forty days to think over these manifold problems. In thus retiring for a season from active personality contact with his earthly associates, Jesus, as he was and on Urantia, was following the very procedure that obtains on the morontia worlds whenever an ascending mortal fuses with the inner presence of the Universal Father.

136:2.7 (1512.3) This day of baptism ended the purely human life of Jesus. The divine Son has found his Father, the Universal Father has found his incarnated Son, and they speak the one to the other.

136:2.8 (1512.4) (Jesus was almost thirty-one and one-half years old when he was baptized. While Luke says that Jesus was baptized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which would be A.D. 29 since Augustus died in A.D. 14, it should be recalled that Tiberius was coemperor with Augustus for two and one-half years before the death of Augustus, having had coins struck in

서 그의 실제적 통치의 15년째 되는 해는, 예수가 세례를 받던 바로 서기 26년이 된다. 또한 이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40일

예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 헤르몬 산 위에서 이슬을 맞으며 6주 동안을 자신의 필사자 증여에서의 큰 유혹을 견디어 낸 적이 있었다. 헤르몬 산 그 위에서, 그는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어떤 도움도 없이, 유란시아의 왕위를 노리는 세상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를 만나 그를 격퇴시켰다. 우주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 많은 날에 나사렛 예수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가 되었다. 그리고 곧 네바돈의 최극 주권자로 선포되어질, 유란시아의 이 영주는, 이제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이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그 기법을 결정짓기 위하여 40일 간의 고립기간으로 들어갔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조절자가 개인성구현됨으로써 발생된, 이 세상과 우주의 변화된 관계에 대해 자신을 조절하기 위한 40일에 들어갔다. 페레아 언덕에서의 이 고립기간 동안, 그는 새롭게도 변경된 지상 일생의 위상 속에서 자신이 곧 시작하여 추구해야 할 정책과 사용되어질 방법들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예수는 금식(禁食)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혼의 시련을 목적으로 은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행자(苦行者)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생각들을 언제까지나 폐지시키려고 왔다. 이러한 은둔 기간을 갖고자 하였던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동기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이신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감시하는, 자신이 만든 우주와, 또한 우주들의 우주와의 자신의 관계를 그 때 온통 자아-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어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 만형인 임마누엘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었던 증여 임무와 그에 따른 지시들을 충분히 상기해 냈다. 그는 이제 모든 광대하게 퍼져 있는 관계들을 명료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 세상과 자신의 지역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세상들을 위한 그의 대중을 위한 수고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의 진행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조용한 명상을 위해 얼마 동안 떠나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적당한 거처를 찾아 언덕을 방황하다가, 예수는 자신의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인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자 아들과 개인적 교통을 재수립하였다;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에텐시아로 갔을 때 구원자별에서

his honor in October, A.D. 11. The fifteenth year of his actual rule was, therefore, this very year of A.D. 26, that of Jesus' baptism. And this was also the year that Pontius Pilate began his rule as governor of Judea.)

3. THE FORTY DAYS

136:3.1 (1512:5) Jesus had endured the great temptation of his mortal bestowal before his baptism when he had been wet with the dews of Mount Hermon for six weeks. There on Mount Hermon, as an unaided mortal of the realm, he had met and defeated the Urantia pretender, Caligastia, the prince of this world. That eventful day, on the universe records, Jesus of Nazareth had become the Planetary Prince of Urantia. And this Prince of Urantia, so soon to be proclaimed supreme Sovereign of Nebadon, now went into forty days of retirement to formulate the plans and determine upon the technique of proclaiming the new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6:3.2 (1512:6) After his baptism he entered upon the forty days of adjusting himself to the changed relationships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occasioned by the personalization of his Adjuster. During this isolation in the Perean hills he determined upon the policy to be pursued and the methods to be employed in the new and changed phase of earth life which he was about to inaugurate.

136:3.3 (1512:7) Jesus did not go into retirement for the purpose of fasting and for the affliction of his soul. He was not an ascetic, and he came forever to destroy all such notions regarding the approach to God. His reasons for seeking this retirement were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had actuated Moses and Elijah, and even John the Baptist. Jesus was then wholly self-conscious concerning his relation to the universe of his making and also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supervised by the Paradise Father, his Father in heaven. He now fully recalled the bestowal charge and its instructions administered by his elder brother, Immanuel, ere he entered upon his Urantia incarnation. He now clearly and fully comprehended all these far-flung relationships, and he desired to be away for a season of quiet meditation so that he could think out the plans and decide upon the procedures for the prosecution of his public labors in behalf of this world and for all other worlds in his local universe.

136:3.4 (1513:1) While wandering about in the hills, seeking a suitable shelter, Jesus encountered his universe chief executive, Gabriel, the Bright and Morning Star of Nebadon. Gabriel now re-established personal communication with the Creator Son of the universe; they met directly for

그의 연관-동료들을 작별한 이래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도와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이를 근거로, 이제 그가 우주의 완전해진 주권을 얻었으며 루시퍼 반란의 종결을 위하여 계획된 그의 유란시아 증여 체험이 실천적으로 완결되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다. 전자(前者)는, 그의 조절자의 개인성구현이 육신으로의 그의 증여의 완전과 완성을 실증하였던 때인 그의 세례(洗禮) 날에 성취되었으며, 후자(後者)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티그라스라는 소년을 만나러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날에 성취되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최고 권한에 입각하여, 주권과 반역에 관계되는 그의 개인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의 증여 일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예수는 알게 되었다. 그는 세례 받던 날에 있었던 환영(幻影)과 자신 안에 거했던 생각 조절자가 개인성구현의 현상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의 직접적인 확인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었다.

그가 가브리엘과 담소하며 산에서 머무는 동안,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 앞에 직접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가엘 611,121번의 자신의 우주 네바돈에 대한 주권은, 완성 안에서 우주 아버지의 오른 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원자-형님인 임마누엘이 보낸 유란시아 육신화 증여에 대한 해제(解除)의 소식을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어느 때라도 당신의 선택에 의하여 육신화 증여를 끝내고 당신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당신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애써서-얻은 네바돈의 모든 무조건적인 주권을 맡아보는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또한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허락으로 초우주의 기록이 완성된 것을 증언하면서, 당신의 우주에서 모든 죄-반란을 종결시켰고, 미래에 있어서의 그러한 잠재적인 격동들의 어떤 것이나 혹은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한 충만하고도 무제한적 권한을 당신에게 자질로서 부여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필사자의 몸을 입은 유란시아에서의 당신의 임무는 완결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당신의 행로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 아버지가 떠났을 때, 예수는 가브리엘과 우주의 복지에 관하여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유란시아에서 그가 시작하려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구원자별에서 관리-운영되었던 증여 이전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가 이미 받아들였던 그 조언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는 자신의 확신을 전하였다.

이러한 고립된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찾아 다녔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여러

the first time since Michael took leave of his associates on Salvington when he went to Edentia preparatory to entering upon the Urantia bestowal. Gabriel, by direction of Immanuel and on authority of the Uversa Ancients of Days, now laid before Jesu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his bestowal experience on Urantia was practically finished so far as concerned the earning of the perfect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and the termin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The former was achieved on the day of his baptism when the personalization of his Adjuster demonstrated the perfection and completion of his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he latter was a fact of history on that day when he came down from Mount Hermon to join the waiting lad, Tiglath. Jesus was now informed, upon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local universe and the superuniverse, that his bestowal work was finished in so far as it affected his personal status in relation to sovereignty and rebellion. He had already had this assurance direct from Paradise in the baptismal vision and in the phenomenon of the personalization of his indwelling Thought Adjuster.

136:3.5 (1513.2) While he tarried on the mountain, talking with Gabriel, the Constellation Father of Edentia appeared to Jesus and Gabriel in person, saying: “The records are completed. The sovereignty of Michael number 611,121 over his universe of Nebadon rests in completion at the right hand of the Universal Father. I bring to you the bestowal release of Immanuel, your sponsor-brother for the Urantia incarnation. You are at liberty now or at any subsequent time, in the manner of your own choosing, to terminate your incarnation bestowal, ascend to the right hand of your Father, receive your sovereignty, and assume your well-earned unconditional rulership of all Nebadon. I also testify to the completion of the records of the superuniverse, by authoriz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having to do with the termination of all sin-rebellion in your universe and endowing you with full and unlimited authority to deal with any and all such possible upheavals in the future. Technically, your work on Urantia and in the flesh of the mortal creature is finished. Your course from now on is a matter of your own choosing.”

136:3.6 (1513.3) When the Most High Father of Edentia had taken leave, Jesus held long converse with Gabriel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universe and, sending greetings to Immanuel, proffered his assurance that, in the work which he was about to undertake on Urantia, he would be ever mindful of the counsel he had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prebestowal charge administered on Salvington.

136:3.7 (1514.1) Throughout all of these forty days of isolatio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were engaged in searching for Jesus. Many times

번 왔었지만, 그를 찾지 못하였다.

they were not far from his abiding place, but never did they find him.

제 4 장. 대중을 위한 일에 대한 계획

4. PLANS FOR PUBLIC WORK

날마다 언덕에서, 예수는 자신의 유란시아 증여의 나머지 기간을 위한 계획들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요한과 같은 시기에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요한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가 갑자기 구속되는 불상사로 중단하게 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물려져 있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예수는, 요한의 그 두려움 없는 막무가내의 설교는 곧 적과 시민 통치자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유발시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의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는 자기의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광대한 우주를 망라하여 거주민이 사는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대중을 위한 수고의 과정을 분명하게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미가엘의 필사자증여는 유란시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증여는 네바돈의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요한의 행동에 맞추어서 자신의 행로를 조화-협동하는 대체적인 계획을 고려한 후에, 예수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시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 이행의 방법들에 관한 것들과 그 행성에 그의 어떤 영구한 필체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다시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았다. 미래 위를 제외하고는, 예수는 결코 다시는 어떤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사렛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는 목판에 써서 목공소 주위에 걸려 있는 글씨들과 그의 고향집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글씨들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그 일은 그의 동생 요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당면하여야 할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관한 임마누엘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예수는 이 40일의 고립 기간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가장 긴 기간은, 언덕에서 그가 너무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 잊었던, 첫 2일 간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이 세상 혹은 어떤 다른 세상의 반역적인 어떤 악의 영들이나 혹은 반역적인 개인성들에 의해 유혹 받은 적이 없었다.

이 40일 기간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 사이에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였거나, 아니면 오히려 두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연관되어 이룩한 최초의 실체 활동이라 할 수 있었다. 이 결정적인 명상의 기간의 결과들은 결국 신성한 마음이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지배하여 왔음을 실증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마음으로 되었으며, 비록 사람 마음의 자아신분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지만, 영성화된 이 사람 마음은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 많은 시기의 활동행위들은 굶주

^{136:4.1 (1514.2)} Day by day, up in the hills, Jesus formulated the plans for the remainder of his Urantia bestowal. He first decided not to teach contemporaneously with John. He planned to remain in comparative retirement until the work of John achieved its purpose, or until John was suddenly stopped by imprisonment. Jesus well knew that John's fearless and tactless preaching would presently arouse the fears and enmity of the civil rulers. In view of John's precarious situation, Jesus began definitely to plan his program of public labors in behalf of his people and the world, in behalf of every inhabited world throughout his vast universe. Michael's mortal bestowal was on Urantia but for all worlds of Nebadon.

^{136:4.2 (1514.3)} The first thing Jesus did, after thinking through the general plan of co-ordinating his program with John's movement, was to review in his mind the instructions of Immanuel. Carefully he thought over the advice given him concerning his methods of labor, and that he was to leave no permanent writing on the planet. Never again did Jesus write on anything except sand. On his next visit to Nazareth, much to the sorrow of his brother Joseph, Jesus destroyed all of his writing that was preserved on the boards about the carpenter shop, and which hung upon the walls of the old home. And Jesus pondered well over Immanuel's advice pertaining to hi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 toward the world as he should find it.

^{136:4.3 (1514.4)} Jesus did not fast during this forty days' isolation. The longest period he went without food was his first two days in the hills when he was so engrossed with his thinking that he forgot all about eating. But on the third day he went in search of food. Neither was he *tempted* during this time by any evil spirits or rebel personalities of station on this world or from any other world.

^{136:4.4 (1514.5)} These forty days were the occasion of the final conference between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or rather the first real functioning of these two minds as now made one. The results of this momentous season of meditation demonstrated conclusively that the divine mind has triumphantly and spiritually dominated the human intellect. The mind of man has become the mind of God from this time on, and though the selfhood of the mind of man is ever present, always does this spiritualized human mind say,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136:4.5 (1514.6)} The transactions of this eventful time

리고 허약해진 마음이 공상적인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광야에서의 예수”이라는 나중에 붙여진 기록처럼 혼란되고 미숙한 상징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획기적이고 다양한 유란시아 증여의 생애를 숙고해 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최선의 봉사가 되며, 한편으로는 반역으로 고립된 모든 구체들의 개선에 헌신하려는 미래의 사명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기간이었다. 예수는 안돈과 폰타의 시대부터 아담의 불이행을 거쳐 살렘의 멜기세덱의 사명활동 시기까지 이르는 유란시아의 인간 일생의 전체 여정을 두루 살펴보았다.

가브리엘은 그가 유란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에게는 자신을 세상에 현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수께 상기시켰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선택은 그의 우주 주권이나 혹은 루시퍼 반역의 종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수께 분명하게 알렸다. 이 세상 사명활동에서의 두 가지 방법들이란:

1. 그 자신의 방법—이 세상의 즉각적인 필요성들에 대한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우주에서의 당면한 계발(啓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하고 이익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방법.

2. 아버지의 방법—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파라다이스 관리-행정에 있는 높은 개인성들에 의해 구상되어진 창조체 일생의 이상(理想)을 널리 알리게 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에게는 자신의 나머지 지상 일생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장의 경우에 비추어서 간주해볼 때, 이들 각각의 방법은 그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행위상에서의 이 두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자신이 취한 선택은 이미 자신의 우주 주권 수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며;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았고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서 기록으로 날인(捺印)되어서 단지 그가 직접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육신화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도 그렇게 고귀하게 완결되도록 맞춰봐야만 한다면, 그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에게 큰 만족을 잘 제공하리라는 것이 예수께 전달되었다. 이 고립 기간의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를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완결할 것과 이 경우에 관계하는 두 가지 길에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것을 자신에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일생 동안에 항상 이 결심에 충실하게 사셨다. 쓰러린 마지막까지도 그는 변함없이 그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로 종속시켰다.

험악한 산 속에서의 40일은, 큰 시험을 받은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主)께서 위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시기였다. 자기 자신과의 홀로 가지는 교통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직접 현존—개인성구현된 조절자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세라핌천사

were not the fantastic visions of a starved and weakened mind, neither were they the confused and puerile symbolisms which afterward gained record as the “temptations of Jesus in the wilderness.” Rather was this a season for thinking over the whole eventful and varied career of the Urantia bestowal and for the careful laying of those plans for further ministry which would best serve this world while also contributing something to the betterment of all other rebellion-isolated spheres. Jesus thought over the whole span of human life on Urantia, from the days of Andon and Fonta, down through Adam’s default, and on to the ministry of the Melchizedek of Salem.

136:4.6 (1514.7) Gabriel had reminded Jesus that there were two ways in which he might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in case he should choose to tarry on Urantia for a time. And it was made clear to Jesus that his choice in this matter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either his universe sovereignty or the termination of the Lucifer rebellion. These two ways of world ministry were:

136:4.7 (1515.1) 1. His own way — the way that might seem most pleasant and profitable from the standpoint of the immediate needs of this world and the present edification of his own universe.

136:4.8 (1515.2) 2. The Father’s way — the exemplification of a farseeing ideal of creature life visualized by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36:4.9 (1515.3) It was thus made clear to Jesus that there were two ways in which he could orde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Each of these ways had something to be said in its favor as it might be regarded in the light of the immediate situation. The Son of Man clearly saw that his choice between these two modes of conduct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his reception of universe sovereignty; that was a matter already settled and sealed on the record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only awaited his demand in person. But it was indicated to Jesus that it would afford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great satisfaction if he, Jesus, should see fit to finish up his earth career of incarnation as he had so nobly begun it, always subject to the Father’s will. On the third day of this isolation Jesus promised himself he would go back to the world to finish his earth career, and that in a situation involving any two ways he would always choose the Father’s will. And he lived 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always true to that resolve. Even to the bitter end he invariably subordinated his sovereign will to that of his heavenly Father.

136:4.10 (1515.4) The forty days in the mountain wilderness were not a period of great temptation but rather the period of the Master’s great decisions. During these days of lone communion with himself and his Father’s immediate presence

보호자를 가지지 않았다) —와의 홀로 가지는 교통을 나누는 나날 동안에, 그는 자신의 나머지 지상 생애를 위한 정책과 행위들을 통제하게 될 큰 결정들에 하나씩 도달하였다. 헤르몬 산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혼동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영도자들이 그들의 공생애를 이러한 기대된 금식과 기도의 기간을 거쳐서 시작했던 사실들 때문에, 큰 시험이 있었다는 후세의 전통이 이 고립의 기간에 덧붙여졌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이 앞에 놓였을 때,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의 교제를 위하여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예수가 항상 해오던 실천 관행이었다.

나머지 지상 일생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수는 행위성에서의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과정들로 인해 항상 가슴이 아프셨다:

1. 그는 그의 사람들—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그의 새로운 영적 왕국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은 강한 바람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2. 그의 아버지가 승인하는 삶을 살며 일을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상들을 위하여 그의 일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왕국을 설립함으로써 아버지를 계시하며 그분의 신성한 성격인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는 것.

이러한 사건 많은 날들 내내, 예수는 언젠가 바이트 아디스라고 불리던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은신처인 바위 동굴에서 지냈다. 그는 이 바위 동굴 가까이에 있는 언덕 옆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

— the Personalized Adjuster (he no longer had a personal seraphic guardian) — he arrived, one by one, at the great decisions which were to control his policies and conduct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Subsequently the tradition of a great temptation became attached to this period of isolation through confusion with the fragmentary narratives of the Mount Hermon struggles, and further because it was the custom to have all great prophets and human leaders begin their public careers by undergoing these supposed seasons of fasting and prayer. It had always been Jesus' practice, when facing any new or serious decisions, to withdraw for communion with his own spirit that he might seek to know the will of God.

136:4.11 (1515.5) In all this planning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Jesus was always torn in his human heart by two opposing courses of conduct:

136:4.12 (1515.6) 1. He entertained a strong desire to win his people — and the whole world — to believe in him and to accept his new spiritual kingdom. And he well knew their ideas concerning the coming Messiah.

136:4.13 (1515.7) 2. To live and work as he knew his Father would approve, to conduct his work in behalf of other worlds in need, and to continu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to reveal the Father and show forth his divine character of love.

136:4.14 (1515.8) Throughout these eventful days Jesus lived in an ancient rock cavern, a shelter in the side of the hills near a village sometime called Beit Adis. He drank from the small spring which came from the side of the hill near this rock shelter.

제 5 장. 첫 번째의 중대한 결정

자기 자신과 그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와의 협의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만드는 그들의 사령관이 보낸 네바돈의 천상의 무리가 집합되어있는 환영(幻影)이 예수에게 보였다. 이 강력한 무리는 12 군단의 세라핌천사들과, 우주의 각 계층들로부터 온 균등한 숫자의 지능존재들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的高립기간 중의 첫 번째 중대한 결정은, 그가 자신의 유란시아에서의 대중을 위한 일에 따르는 예정에 관련하여 이들 강력한 개인성들의 힘을 유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였다.

예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임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이 광대한 집단의 한 개인성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군단은 항상 그들의 주권자의 한 마디 명령이라도 즉각적으로 복종할 준비를 갖추고서, 그의 지상 일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내내 남아있었다. 비록 예수가 자

5. THE FIRST GREAT DECISION

136:5.1 (1516.1) On the third day after beginning this conference with himself and his Personalized Adjuster, Jesus was presented with the vision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of Nebadon sent by their commanders to wait upon the will of their beloved Sovereign. This mighty host embraced twelve legions of seraphim and proportionate numbers of every order of universe intelligence. And the first great decision of Jesus' isolation had to do with whether or not he would make use of these mighty personalities in connection with the ensuing program of his public work on Urantia.

136:5.2 (1516.2) Jesus decided that he would *not* utilize a single personality of this vast assemblage unless it should become evident that this was his *Father's will*. Notwithstanding this general decision, this vast host remained with him throughout the balance of his earth life, always in readiness to obey the least expression of their

신의 인간 눈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개인성들을 항상 볼 수는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들 전부를 항상 볼 수 있었고 그들과 교통할 수 있었다.

언덕에서의 40일 동안의 은거생활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예수는 이러한 대기 중인 우주 개인성들에 대한 직접 지휘를, 자신의 최근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맡겼으며,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 이상 동안 우주 지능의 모든 부서로부터 온 선택된 이 개인성들은 복종적으로 그리고 존중심을 가지고 이 고양되고 체험 있는 개인성구현된 신비감시자의 현명한 지도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이 강력한 군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이전에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분신이였으며 핵심이었던 조절자가, 아버지께서 그러한 개입을 원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들 초인간적 대리자들이 그의 지상 생애와 관련되어서나 혹은 그것을 위하는 일에 자신들을 현시하는 것이 금지될 것임을 예수께 약속하였다.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림으로 인하여, 아들의 지상 수고들 중에서 특정한 행동이나 에피소드에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예수는 그의 나머지 필사자생애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모든 초인간적인 협조를 자발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리스도 미가엘을 시중드는 우주군단들에 대한 이러한 지도권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러한 우주 창조체들의 집단이 그들의 창조자의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공간 활동에는 제한되어질 수 있지만, 시간에 관계되는 그들의 작용에서는, 그로서는 그렇게 똑같은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예수에게 매우 강조하면서 그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일단 조절자들이 개인성구현되어지면 그들이 비(非)시간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조절자가 그의 지도 아래에 놓인 살아있는 지능체들의 통제에 있어서, 공간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들의 경우에는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지만, 시간에 관한 것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는 조절자로부터 경고 받았다.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지도대로 나는 여기 시중드는 우주 지능의 무리가 너의 지상임무에 관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서 내가 선택한 그의 신성한 뜻이 성취될 수도 있는 그러한 대리자들을 풀어놓으라고 그가 나에게 지도하는 경우, 그리고 또한 지상의 자연 질서로부터 오직 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탈되는 것만이 포함되어질 너의 신성의-인간의 의지의 선택이나 행동을 내가 떠맡아야할지 모를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이다. 모든 그러한 사건에서는, 내가 무력하고, 그리고 힘의 완전함과 합일 안에 여기에 모여 있는 너의 창조체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다. 만약 너의 연합된 본성들이 일단 그러한 소망을 품는다면, 선택한 이들 명령은 당장 집행될 것이다. 모든 그러한 문제에서, 너의 소망은 시간의 단축을 구성할 것이며, 구체적

Sovereign's will. Although Jesus did not constantly behold these attendant personalities with his human eyes, his associated Personalized Adjuster did constantly behold, and could communicate with, all of them.

136:5.3 (1516.3) Before coming down from the forty days' retreat in the hills, Jesus assigned the immediate command of this attendant host of universe personalities to his recently Personalized Adjuster, and for more than four years of Urantia time did these selected personalities from every division of universe intelligences obediently and respectfully function under the wise guidance of this exalted and experienced Personalized Mystery Monitor. In assuming command of this mighty assembly, the Adjuster, being a onetime part and essence of the Paradise Father, assured Jesus that in no case would these superhuman agencies be permitted to serve, or manifest themselves in connection with, or in behalf of, his earth career unless it should develop that the Father willed such intervention. Thus by one great decision Jesus voluntarily deprived himself of all superhuman co-operation in all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remainder of his mortal career unless the Father might independently choose to participate in some certain act or episode of the Son's earth labors.

136:5.4 (1516.4) In accepting this command of the universe hosts in attendance upon Christ Michael, the Personalized Adjuster took great pains to point out to Jesus that, while such an assembly of universe creatures could be limited in their *space* activities by the delegated authority of their Creator, such limitations were not operative in connection with their function in *time*. And this limitation was dependent on the fact that Adjusters are nontime beings when once they are personalized. Accordingly was Jesus admonished that, while the Adjuster's control of the living intelligences placed under his command would be complete and perfect as to all matters involving *space*, there could be no such perfect limitations imposed regarding *time*. Said the Adjuster: "I will, as you have directed, enjoin the employment of this attendant host of universe intelligences in any manner in connection with your earth career except in those cases where the Paradise Father directs me to release such agencies in order that his divine will of your choosing may be accomplished, and in those instances where you may engage in any choice or act of your divine-human will which shall only involve departures from the natural earth order as to *time*. In all such events I am powerless, and your creatures here assembled in perfection and unity of power are likewise helpless. If your united natures once entertain such desires, these mandates of your choice will be forthwith executed. Your wish in all such matters will constitute the abridgment of time, and the thing projected is existent. Under my

으로 투사된 일은 실존적 이다. 나의 지도 아래에 서는, 이것이 너의 잠재 주권에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제한의 전부이다. 나의 자아-의식에서는, 시간이 비(非)실존이며,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나는 너의 창조체들을 제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예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관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는 시간에 관한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추구하려는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에서 다양한 지능존체들 무리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예수의 사명활동 중에서 가능하였던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 업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한, 전적으로 시간요소의 제거에 관계된 것임이 명백해졌다. 예수의 남겨진 땅에서의 수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떤 기적, 자비로운 사명활동, 또는 다른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서술한 시간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유란시아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련사에서 확립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의 성격이나 본성이 도무지 없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을 현시활동하는 일에서는 아무 제한도 있을 수 없었다. 우주의 이 잠재적 주권자가 밖으로 표현한 소망과 관련하여 시간 단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의 단축이나 제거를 금지한다는 이 하느님-사람의 의지의 직접적이고도 뚜렷한 행동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영향이 의심되어지는 행동이나 사건과 관계되어진 일을 피하는 것이었다. 명백한 시간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는 끊임없이 시간을 의식하며 지내야만 하였다. 그의 편에서 그 어떤 시간 의식의 벗어남이,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과 접촉된다면, 그것은 이 창조자 아들의 마음속에서 착상된 것이 집행되는 것, 그리고 시간의 간섭 없이 그렇게 되는 것과 동등한 것이었다.

그의 연관되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감시하는 통제를 통하여, 미가엘은 공간과 연관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활동들을 완전하게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아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관련될 때에는 잠정적인 네바돈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새로운 지상(地上)의 지위를 그렇게 제한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하려고 나섰을 때, 나사렛 예수의 실제 지위였다.

제 6 장. 두 번째 결정

예수는 자신의 새로운 신성의 지위에 선천적으로 잠재된 관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가 창조한 지능존체들의 모든 등급의 모든 개인성에 관련한 자신의 방침을 정하게 되자, 이제 그의 생각을 그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가 자신이 이 우주 안에 실존하는 모든 만물과 존재의 창조자임을 충분히 자아-의식하는 지금, 이들 창조자 특권과 함께 되풀이되는 일생의 상황에서 무

command this constitutes the fullest possible limitation which can be imposed upon your potential sovereignty. In my self-consciousness time is nonexistent, and therefore I cannot limit your creatures in anything related thereto.”

136:5.5 (1517.1) Thus did Jesus become apprised of the working out of his decision to go on living as a man among men. He had by a single decision excluded all of his attendant universe hosts of varied intelligences from participating in his ensuing public ministry except in such matters as concerned *time* only. It therefore becomes evident that any possible supernatural or supposedly superhuman accompaniments of Jesus' ministry pertained wholly to the elimination of time unless the Father in heaven specifically ruled otherwise. No miracle, ministry of mercy, or any other possible event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Jesus' remaining earth labors could possibly be of the nature or character of an act transcending the natural laws established and regularly working in the affairs of man as he lives on Urantia *except* in this expressly stated matter of *time*. No limits, of course, could be placed upon the manifestations of “the Father's will.” The elimination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e expressed desire of this potential Sovereign of a universe could only be avoided by the direct and explicit act of the *will* of this God-man to the effect that time, as related to the act or event in question, *should not be shortened or eliminated*. In order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apparent *time miracles*, it was necessary for Jesus to remain constantly time conscious. Any lapse of time consciousness on his part, in connection with the entertainment of definite desire, was equivalent to the enactment of the thing conceived in the mind of this Creator Son, an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ime.

136:5.6 (1517.2) Through the supervising control of his associated and Personalized Adjuster it was possible for Michael perfectly to limit his personal earth activities with reference to space, but it was not possible for the Son of Man thus to limit his new earth status as potential Sovereign of Nebadon as regards *time*. And this was the actual status of Jesus of Nazareth as he went forth to begin his public ministry on Urantia.

6. THE SECOND DECISION

136:6.1 (1517.3) Having settled his policy concerning all personalities of all classes of his created intelligences, so far as this could be determined in view of the inherent potential of his new status of divinity, Jesus now turned his thoughts toward himself. What would he, now the fully self-conscious creator of all things and beings existent in this universe, do with these creator prerogatives

엇을 할 것인가, 그가 사람들에게로 그의 임무를 시작하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즉시 부딪치는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고 있던 그 외로운 언덕에서 음식을 구하는 데에서 벌써 이 점이 문제되었다. 외로운 명상이 3일째 되던 날, 그의 인간 육신은 점점 배고프게 되었다. 그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음식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적 힘을 발휘하고 적당한 몸의 영양분을 즉시 쓸 수 있도록 산출할 것인가? 이러한 주(主)의 중대한 결정이 너희들에게는 유혹—가상되어진 적들이 “이 돌로 하여금 빵으로 변하게 명령하라고” 도전했다고—으로 묘사되어졌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지상 임무에 대한 다른 하나의 일관된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자신의 개인적 필요성에 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개인성들과의 그의 관계에서까지도,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실존으로서의 길을 신중하게 추구였으며; 자신이 세운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어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미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 의하여 경고 받았던 바와 같이, 특정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이 매우 가속(加速)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신에게 약속할 수는 없었다. 원칙적으로, 예수는 자신의 필생의 사업은 자연적인 법에 따르고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조직에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되어지고 실행되어질 것을 결정하였다. 주(主)는 거기에서 기적이나 경이로움 없이 결정되는 삶의 경로를 선택하였다. 다시 한 번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 번째 의무가 자아-보존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들에 사는 자연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유란시아 필사자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이 세상과 그곳의 창조체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광대하게 퍼져있는 우주의 가지각색의 창조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계획된 일생을 사셨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명백하게 되기 전에도,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인도에 완전한 복종으로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필사가가 기대는 그러한 절대적 의존을 계속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하였다. 그는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자아-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방침을 추구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이 내리신 결론들을 성서에 있는 말들로써 그의 인간 마음속에 이렇게 구체화시켰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해서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충동들에 관하

in the recurring life situations which would immediately confront him when he returned to Galilee to resume his work among men? In fact, already, and right where he was in these lonely hills, had this problem forcibly presented itself in the matter of obtaining food. By the third day of his solitary meditations the human body grew hungry. Should he go in quest of food as any ordinary man would, or should he merely exercise his normal creative powers and produce suitable bodily nourishment ready at hand? And this great decision of the Master has been portrayed to you as a temptation — as a challenge by supposed enemies that he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loaves of bread.”

136:6.2 (1518.1) Jesus thus settled upon another and consistent policy for the remainder of his earth labors. As far as his personal necessities were concerned, and in general even in his relations with other personalities, he now deliberately chose to pursue the path of normal earthly existence; he definitely decided against a policy which would transcend, violate, or outrage his own established natural laws. But he could not promise himself, as he had already been warned by his Personalized Adjuster, that these natural laws might not, in certain conceivable circumstances, be greatly *accelerated*. In principle, Jesus decided that his lifework should be organized and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natural law and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social organization. The Master thereby chose a program of living which was the equivalent of deciding against miracles and wonders. Again he decided in favor of “the Father’s will”; again he surrendered everything into the hands of his Paradise Father.

136:6.3 (1518.2) Jesus’ human nature dictated that the first duty was self-preservation; that is the normal attitude of the natural man on the worlds of time and space, and it is, therefore, a legitimate reaction of a Urantia mortal. But Jesus was not concerned merely with this world and its creatures; he was living a life designed to instruct and inspire the manifold creatures of a far-flung universe.

136:6.4 (1518.3) Before his baptismal illumination he had lived in perfect submission to the will and guidance of his heavenly Father. He emphatically decided to continue on in just such implicit mortal dependence on the Father’s will. He purposed to follow the unnatural course — he decided not to seek self-preservation. He chose to go on pursuing the policy of refusing to defend himself. He formulated his conclusions in the words of Scripture familiar to his human mind: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In reaching this conclusion in regard to the appetite of the physical nature as expressed in hunger for food, the Son of Man made his final declaration concerning all other

여 최종적인 선언을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간적인 힘을 쓸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켰으며, 그 때 그를 조롱하여 말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왜냐하면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돌로부터 물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들을 먹여 살린 모세보다도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자기 민족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종류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들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특권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과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의 실천 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마도, 자기 창조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자연의 법을 가속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법을 초월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리고 주(主)의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으며; 그는 그들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 그가 올 때 “세상은 그의 열매를 1만 배 이상 수확할 것이며, 한 년갈에는 1천 개의 송이들이 있을 것이며, 각각의 송이는 1천 개의 포도를 맺을 것이며, 각각의 포도는 1갤런의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납득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풍성한 기적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들은 기적에 대한 전통들과 경이로움에 대한 전설들에 오랫동안 젖어왔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현세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하여 왔고,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에 그와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기를 꾀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는 순전히 개인적 유대함을 위해서 또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신성한 재능이나 하느님이-주신 능력을 팔아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우주에게 나타내 주었다. 그것이 바로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의 죄였다.

예수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은, 이기적인 충족과 감성적인 희열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

urges of the flesh and the natural impulses of human nature.

136:6.5 (1518.4) His superhuman power he might possibly use for others, but for himself, never. And he pursued this policy consistently to the very end, when it was jeeringly said of him: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 because he would not.

136:6.6 (1518.5) The Jews were expecting a Messiah who would do even greater wonders than Moses, who was reputed to have brought forth water from the rock in a desert place and to have fed their forefathers with manna in the wilderness. Jesus knew the sort of Messiah his compatriots expected, and he had all the powers and prerogatives to measure up to their most sanguine expectations, but he decided against such a magnificent program of power and glory. Jesus looked upon such a course of expected miracle working as a harking back to the olden days of ignorant magic and the degraded practices of the savage medicine men. Possibly, for the salvation of his creatures, he might accelerate natural law, but to transcend his own laws, either for the benefit of himself or the overawing of his fellow men, that he would not do. And the Master's decision was final.

136:6.7 (1518.6) Jesus sorrowed for his people; he fully understood how they had been led up to the expectation of the coming Messiah, the time when “the earth will yield its fruits ten thousandfold, and on one vine there will be a thousand branches, and each branch will produce a thousand clusters, and each cluster will produce a thousand grapes, and each grape will produce a gallon of wine.” The Jews believed the Messiah would usher in an era of miraculous plenty. The Hebrews had long been nurtured on traditions of miracles and legends of wonders.

136:6.8 (1519.1) He was not a Messiah coming to multiply bread and wine. He came not to minister to temporal needs only; he came to reveal his Father in heaven to his children on earth, while he sought to lead his earth children to join him in a sincere effort so to live a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6:6.9 (1519.2) In this decision Jesus of Nazareth portrayed to an onlooking universe the folly and sin of prostituting divine talents and God-given abilities for personal aggrandizement or for purely selfish gain and glorification. That was the sin of Lucifer and Caligastia.

136:6.10 (1519.3) This great decision of Jesus portrays dramatically the truth that selfish satisfaction and sensuous gratification, alone and of themselves,

적으로 묘사해 주었다. 필사자 실존에서 좀 더 높은 가치들—지적인 통달과 영적 성취—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순수하게 육체적인 욕구와 강한 충동에서의 필요한 만족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사람의 재능에서의 본능적 자질과 힘은, 자신의 더 높은 마음과 영의 힘의 발전과 고결함을 위하여 그 대부분을 헌신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예수는, 공간의 세상들에서 좀 더 높은 생의 가치들과 진화하는 인간 실존의 좀 더 깊은 영적 만족이라는 새롭고 나은 길로 가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창조체들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이다.

제 7 장. 세 번째 결정

자기 자신과 연관-동료 인간들의 건강관리로서의 물질적인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음식과 육체적 보살핌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그에게는 아직도 또 다른 하나의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다. 개인적 위험에 당면하였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애에서 뜻밖의 종말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함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알맞은 조심을 하되, 육신상의 비상사태를 만났을 경우에, 모든 초인간적인 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예수는 바로 그의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앞으로 좀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셨다. 그는 튀어나온 그 바위에서 자신이 공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다,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삶의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천상의 지능체들의 중재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첫 번째 중대한 결정과 자아-보존을 향한 그의 태도에 관련된 자신의 두 번째 결정을 폐지시킨다면, 자기에게는 아무 위험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는 자기 민족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 문장을 매우 잘 알고 계셨다: “너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疫病)도 네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모든 길들을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중력의 법칙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이런 종류의 가정(假定)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그를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길을 들어간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을 아무리 만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길은 아닐 것이며 단지 우주들의 우주에 설립되어 있는 법칙들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뿐일 것이다.

are not able to confer happiness upon evolving human beings. There are higher values in mortal existence — intellectual mastery and spiritual achievement — which far transcend the necessary gratification of man's purely physical appetites and urges. Man's natural endowment of talent and ability should be chiefly devoted to the development and ennoblement of his higher powers of mind and spirit.

136:6.11 (1519.4) Jesus thus revealed to the creatures of his universe the technique of the new and better way, the higher moral values of living and the deeper spiritual satisfactions of evolutionary human existence on the worlds of space.

7. THE THIRD DECISION

136:7.1 (1519.5) Having made his decisions regarding such matters as food and physical ministrations to the needs of his material body, the care of the health of himself and his associates, there remained yet other problems to solve. What would be his attitude when confronted by personal danger? He decided to exercise normal watchcare over his human safety and to take reasonable precaution to prevent the untimely termination of his career in the flesh but to refrain from all superhuman intervention when the crisis of his life in the flesh should come. As he was formulating this decision, Jesus was seated under the shade of a tree on an overhanging ledge of rock with a precipice right there before him. He fully realized that he could cast himself off the ledge and out into space, and that nothing could happen to harm him provided he would rescind his first great decision not to invoke the interposition of his celestial intelligences in the prosecution of his lifework on Urantia, and provided he would abrogate his second decision concerning his attitude toward self-preservation.

136:7.2 (1519.6) Jesus knew his fellow countrymen were expecting a Messiah who would be above natural law. Well had he been taught that Scripture: “There shall no evil befall you, neither shall any plague come near your dwelling.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to keep you in all your ways. They shall bear you up in their hands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 Would this sort of presumption, this defiance of his Father's laws of gravity, be justified in order to protect himself from possible harm or, perchance, to win the confidence of his mistaught and distracted people? But such a course, however gratifying to the sign-seeking Jews, would be, not a revelation of his Father, but a questionable trifling with the established law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主)는 자신의 개인적 행위에 관해서는 자신이 세운 자연법칙을 무시하며 일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너희는 그가 절대로 물위를 걸어 다니신 적이 없었고, 세상을 관리-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 계층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관할 아래에 놓인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 요소에 대한 통제력의 부족에서 전반적으로 벗어나는 아무런 방법을 아직까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의 지상 일생 내내, 끊임없이 이 결정에 충실하였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려고 하거나, 갈보리에서 감시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소하였을 때까지도, 그는 그 언덕에서 이 시간에 내렸던 결정을 꾸준히 지켜나가셨다.

제 8 장. 네 번째 결정

이 하느님-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심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로 다음의 큰 문제는, 그가 자기 동료 인간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가깝게 끌어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는 웅장함과 경탄을 열망하는 유대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우주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방법으로 모든 그러한 실천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중대한 결정을 일관하게 지켜나가셨다. 시간을-단축시키는 자비의 사명활동의 현시활동을 그가 여러 번 허락하였을 때조차도, 그의 치료하는 사명활동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혜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의 변함없이 타일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실증하는 “표적을 보이라”는 적의 비웃으며 하는 도전을 항상 거절하였다.

예수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과 경이로움을 실행하는 것이 오직 물질적 마음을 장악하는 길으로만의 충성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매우 현명하게 예견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은 하느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단 한가지의 임무—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하였다.

예수가 자기 자신과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든 중대한 대화들을 하는 동안 내내, 의문을 던지고 거의 의심까지 하고 있는 인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136:7.3 (1519.7)} Understanding all of this and knowing that the Master refused to work in defiance of his established laws of nature in so far as his personal conduct was concerned, you know of a certainty that he never walked on the water nor did anything else which was an outrage to his material order of administering the world; always, of course, bearing in mind that there had, as yet, been found no way whereby he could be wholly delivered from the lack of control over the element of time in connection with those matters pu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136:7.4 (1520.1)} Throughout his entire earth life Jesus was consistently loyal to this decision. No matter whether the Pharisees taunted him for a sign, or the watchers at Calvary dared him to come down from the cross, he steadfastly adhered to the decision of this hour on the hillside.

8. THE FOURTH DECISION

^{136:8.1 (1520.2)} The next great problem with which this God-man wrestled and which he presently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concern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any of his superhuman powers should be employed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the attention and winning the adherence of his fellow men. Should he in any manner lend his universe powers to the gratification of the Jewish hankering for the spectacular and the marvelous? He decided that he should not. He settled upon a policy of procedure which eliminated all such practices as the method of bringing his mission to the notice of men. And he consistently lived up to this great decision. Even when he permitted the manifestation of numerous time-shortening ministrations of mercy, he almost invariably admonished the recipients of his healing ministry to tell no man about the benefits they had received. And always did he refuse the taunting challenge of his enemies to “show us a sign” in proof and demonstration of his divinity.

^{136:8.2 (1520.3)} Jesus very wisely foresaw that the working of miracles and the execution of wonders would call forth only outward allegiance by overawing the material mind; such performances would not reveal God nor save men. He refused to become a mere wonder-worker. He resolved to become occupied with but a single task —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136:8.3 (1520.4)} Throughout all this momentous dialogue of Jesus’ communing with himself, there was present the human element of questioning and near-doubting, for Jesus was man as well as God. It was evident he would never be received by the Jews as the Messiah if he did not work wonders. Besides, if he would consent to do just

이었다. 게다가, 만약 그가 단지 한 번이라도 비자연적인 일의 실행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성한 마음에 대한 비굴함이라는 것을 그의 인간 마음이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신성한 마음이 의심을 품은 인간 마음에게 이러한 특전을 베푸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 예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단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현존만으로도 신성과 인간성과의 협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결정하였다.

예수는 이미 많은 여행을 하였으므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쿠스를 회상하였다. 그는 세상의 방법들—사람들이 정치를 통하여 어떻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타협과 외교술로 교역을 하는지—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지상임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 지식을 이용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설립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와의 모든 타협과 부자들의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결정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힘들의 하나로 열려있는 지름길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국가와 온 세상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알고 계셨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축하가 곧 있을 것이다; 그 도시는 방문객들로 넘칠 것이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이에 찬 군중들 앞에서 하늘 위를 걸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종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한 그 길을 앞질러 가려고 하였던 칼리가스티아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다. 다시 한 번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인 아버지의 방법에 복종하기로 하였다.

예수는 인류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따라오게 될 자신의 지상 자녀들이 하늘왕국을 키우고 확대해나가는 일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어렵고, 고된 방법들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써 모든 세대의 많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이제 힘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교화된 사람으로서의 큰 시험을 체험하고 계셨다.

사람의 아들의 일생과 체험을 고려함에 있어서,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 20세기나 혹은 다른 세기의 인간이 아닌, 1세기의 필사자 마음을 가지고 육신화 되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은, 예수의 인간 자질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과 그의 훈련과 교육의 영향에 의해 빚어진,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그 당시, 그 세대의 실제적인 지적 지위와 사회적이고 경제

one unnatural thing, the human mind would know of a certainty that it was in subservience to a truly divine mind. Would it be consistent with “the Father’s will” for the divine mind to make this concession to the doubting nature of the human mind? Jesus decided that it would not and cited the presence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as sufficient proof of divinity in partnership with humanity.

136:8.4 (1520.5) Jesus had traveled much; he recalled Rome, Alexandria, and Damascus. He knew the methods of the world — how people gained their ends in politics and commerce by compromise and diplomacy. Would he utilize this knowledge in the furtherance of his mission on earth? No! He likewise decided against all compromise with the wisdom of the world and the influence of rich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He again chose to depend exclusively on the Father’s will.

136:8.5 (1520.6) Jesus was fully aware of the short cuts open to one of his powers. He knew many ways in which the attention of the nation, and the whole world, could be immediately focused upon himself. Soon the Passover would be celebrated at Jerusalem; the city would be thronged with visitors. He could ascend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before the bewildered multitude walk out on the air; that would be the kind of a Messiah they were looking for. But he would subsequently disappoint them since he had not come to re-establish David’s throne. And he knew the futility of the Caligastia method of trying to get ahead of the natural, slow, and sure way of accomplishing the divine purpose. Again the Son of Man bowed obediently to the Father’s way, the Father’s will.

136:8.6 (1521.1) Jesus chos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ankind by natural, ordinary, difficult, and trying methods, just such procedures as his earth children must subsequently follow in their work of enlarging and extending that heavenly kingdom. For well did the Son of Man know that it would be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many of the children of all ages would enter into the kingdom.” Jesus was now passing through the great test of civilized man, to have power and steadfastly refuse to use it for purely selfish or personal purposes.

136:8.7 (1521.2) In your consideration of the life and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it should be ever borne in mind that the Son of God was incarnate in the mind of a first-century human being, not in the mind of a twentieth-century or other-century mortal. By this we mean to convey the idea that the human endowments of Jesus were of natural acquirement. He was the product of the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his time, plus the influence of his training and education. His

적인 조건들에 그 기반을 두고 전적으로 양육되어진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반면에, 이 하느님-사람의 체현에 있어서는, 신성한 마음이 사람의 지성을 초월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 마음이 작용할 때에는, 마치 순수한 인간 마음이 당시의 인간들의 환경조건 아래에서 하는 것처럼 작용하였다.

예수는, 도덕적 가치들을 강화하거나 혹은 영적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례적인 힘이나 혹은 독단적인 권한에 탐닉하는 행위의 어리석음 또는, 독단적인 힘을 나타낼 목적으로 인위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상들에게 나타내었다. 예수는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가, 마카비 가(家)의 통치에서 보여준 실망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정당하지 않은 인기나 정치적 명성을 얻는 목적으로 오용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신성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민족적 힘이나 국제적 명성으로 위신으로 으로 변환되는 것을 묵인하려 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는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물론, 악과 타협하는 것에도 거부하였다. 주(主)는 승리감에 넘쳐서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하는 것을 땅에서 그리고 현세적으로 고려해야 할 모든 다른 것보다 위에 올려놓았다.

제 9 장. 다섯 번째 결정

자연 법칙과 영적 힘에 대한 그의 개별적인 관계에 적합하도록 정책적인 문제들을 결정한 후, 그는 이제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설립하는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방법들의 선택 쪽으로 자신의 관심을 돌리었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요한의 사명을 넘겨받을 것인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효력적인 노력과 지능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짜야만 할 것인가? 예수는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적어도 그 당시에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메시아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으려는,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였다.

유대인들은 해방자를, 기적의 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고, 유대인들을 세상의 통치자들로 만들어 주며,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로 마음속에 그려왔다. 예수는 이런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악을 버리는 일이며, 그것은 순수하게 영적 문제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찬란한 능력의 전시효과를 수반한 영적 왕국의 취임식에 대한 대안—그러한 일정은 허락될 것이며 전적으로 미가엘의 관할권 안에 있었다—도 생각해 보셨지만, 그는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배제해버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었다. 그는 칼리가스티아의 혁명적인 기법들과 타협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세상을 얻었

humanity was genuine, natural, wholly derived from the antecedents of, and fostered by, the actual intellectual status and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at day and generation. While in the experience of this God-man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the divine mind would transcend the human intellect, nonetheless, when, and as, his human mind functioned, it did perform as would a true mortal min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human environment of that day.

136:8.8 (1521.3) Jesus portrayed to all the worlds of his vast universe the folly of creating artificial situations for the purpose of exhibiting arbitrary authority or of indulging exceptional power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oral values or accelerating spiritual progress. Jesus decided that he would not lend his mission on earth to a repetition of the disappointment of the reign of the Maccabees. He refused to prostitute his divine attribut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unearned popularity or for gaining political prestige. He would not countenance the transmutation of divine and creative energy into national power or international prestige. Jesus of Nazareth refused to compromise with evil, much less to consort with sin. The Master triumphantly put loyalty to his Father's will above every other earthly and temporal consideration.

9. THE FIFTH DECISION

136:9.1 (1521.4) Having settled such questions of policy as pertained to his individual relations to natural law and spiritual power, he turned his attention to the choice of methods to be employed in the proclam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John had already begun this work; how might he continue the message? How should he take over John's mission? How should he organize his followers for effective effort and intelligent co-operation? Jesus was now reaching the final decision which would forbid that he further regard himself as the Jewish Messiah, at least as the Messiah was popularly conceived in that day.

136:9.2 (1522.1) The Jews envisaged a deliverer who would come in miraculous power to cast down Israel's enemies and establish the Jews as world rulers, free from want and oppression. Jesus knew that this hope would never be realized. He knew that the kingdom of heaven had to do with the overthrow of evil in the hearts of men, and that it was purely a matter of spiritual concern. He thought out the advisability of inaugurating the spiritual kingdom with a brilliant and dazzling display of power — and such a course would have been permissible and whol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Michael — but he fully decided against such a plan. He would not compromise with the revolutionary techniques of Caligastia. He had won

었고, 자신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그의 끝도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서 완결할 것을 계획하였다.

하늘과 이 세상에서 모든 힘을 잠재적으로 소유하는 이 하느님-사람이 기적을 사용한 무력적인 전쟁을 통하여 한 때 주권자의 깃발을 휘날렸더라면, 유란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는지 너희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하느님께 대한 경배가 그것으로부터 유래된다고 가정되었을지도 모를 악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던 우주에게, “너희는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야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자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가면서, 예수는 자기가 어떤 종류의 진리-게시자가 될 것인지를 언제까지나-증가하는 명백함으로 알아 차리었다. 그는 하느님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식별하였다. 인간 체험에 있어서 자신의 나머지 잔은 더욱 쓴맛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그 잔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인간 마음까지도 다윗의 왕좌에게는 이제 작별을 고하였다. 이 인간 마음은 신성(神性)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는 데에 분별불가적으로 복종하면서, 인간 마음은 계속 질문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이 삶의 병합된 일생 안에서, 신성한 대답들을 어김없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로마는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천사군단을 거느리고 이제 고립된 속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들을 성취한 사람의 아들은, 세상 영토를 얻을 수 있는 유대인의 마지막 기회를 나타내었다; 그러한 광장한 지혜와 힘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이 유대인은 그의 우주적 자질들을 자신의 웅대함이나 자기 민족의 왕권을 위해 사용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있던 그대로 보였으며,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은 이 모든 힘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나, 그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 그의 관심을 끝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못되었다. 그에게는 인류의 가슴속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설립하는 일,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은 계시를 해주려는 오로지 한가지의 목적이 있을 뿐이었다.

전쟁, 다툼, 살육이라는 관념은 예수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평화의 영주로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였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그는 로마의 억압에 대항하는 반란에서 그들을 이끌어 달라는 유대 열심당들의 청을 다시 한 번 거절하였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쳤던 다음과 같은 성서의 구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

the world in potential by submission to the Father's will, and he proposed to finish his work as he had begun it, and as the Son of Man.

136:9.3 (1522.2) You can hardly imagine what would have happened on Urantia had this God-man, now in potential possession of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once decided to unfurl the banner of sovereignty, to marshal his wonder-working battalions in militant array! But he would not compromise. He would not serve evil that the worship of God might presumably be derived therefrom. He would abide by the Father's will. He would proclaim to an onlooking universe,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136:9.4 (1522.3) As the days passed, with ever-increasing clearness Jesus perceived what kind of a truth-revealer he was to become. He discerned that God's way was not going to be the easy way. He began to realize that the cup of the remainder of his human experience might possibly be bitter, but he decided to drink it.

136:9.5 (1522.4) Even his human mind is saying goodbye to the throne of David. Step by step this human mind follows in the path of the divine. The human mind still asks questions but unfailingly accepts the divine answers as final rulings in this combined life of living as a man in the world while all the time submitting unqualifiedly to the doing of the Father's eternal and divine will.

136:9.6 (1522.5) Rome was mistress of the Western world. The Son of Man, now in isolation and achieving these momentous decisions, with the hosts of heaven at his command, represented the last chance of the Jews to attain world dominion; but this earthborn Jew, who possessed such tremendous wisdom and power, declined to use his universe endowments either for the aggrandizement of himself or for the enthronement of his people. He saw, as it were, “the kingdoms of this world,” and he possessed the power to take them. The Most Highs of Edentia had resigned all these powers into his hands, but he did not want them. The kingdoms of earth were paltry things to interest the Creator and Ruler of a universe. He had only one objective, the further revelation of God to ma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the rule of the heavenly Father in the hearts of mankind.

136:9.7 (1522.6) The idea of battle, contention, and slaughter was repugnant to Jesus; he would have none of it. He would appear on earth as the Prince of Peace to reveal a God of love. Before his baptism he had again refused the offer of the Zealots to lead them in rebellion against the Roman oppressors. And now he made his final decision regarding those Scriptures which his mother had taught him, such as: “The Lord has said to me, ‘You are my Son; this day have I

았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의 상속으로 이방인들을 줄 것이며 너의 소유로 세상의 끝까지 주겠다. 너희는 그들을 철로 된 막대기로 쳐부술 것이며 그들을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 조각을 낼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말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마침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아들의 인간 마음은 이러한 모든 메시아적인 어려움들과 모순들—히브리 경전들, 부모의 가르침, 카잔의 가르침, 유대적 기대들, 인간 야망의 바람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으며; 단 한 번으로 자신의 경로를 결정하였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왕국의 선포를 조용하게 시작하실 것이며, 매일 매일의 과정의 세부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자신의 아버지(개인성구현된 조절자)를 신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에 의해서, 예수는, 영적 문제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시험들을 적용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외람되게 자연의 법을 무시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광대한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영적 영광의 서막으로 세속적인 힘을 갖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는 우주적 충성과 도덕적 고상함의 영감 어린 모범을 세우셨던 것이다.

만약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세례 이후에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자신의 사명과 그것의 본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40일간의 고립과 결정들 후에 동료 사람들에게 돌아온 그에게는 한 가닥의 어떤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예수는 아버지의 왕국 설립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물리적 충족을 채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로마에서 최근에 행해진 것을 목격하였던,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비록 그런 종류의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치적인 권한이나 속세의 힘을 보여줌으로 영적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구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기대에 찬 유대인들의 눈에 다가오는 왕국을 더욱 과장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거절하면서, 예수는 이들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신성의 주장을 틀림없이 배척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초기 추종자들에게 그를 메시아로 암시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애를 쓰셨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들을 다루는 필연성에 직면하였는데: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외침소리, 기적을 행하라는 주장,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요청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페레아 언덕에서 그의 고립 기간 동안에 내린 이 결정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begotten you. Ask of me, and I will give you the heathen for your inheritance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for your possession. You sha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you shall dash them in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136:9.8 (1522.7) Jesus of Nazareth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uch utterances did not refer to him. At last, and finally, the human mind of the Son of Man made a clean sweep of all these Messianic difficulties and contradictions — Hebrew scriptures, parental training, chazan teaching, Jewish expectations, and human ambitious longings; once and for all he decided upon his course. He would return to Galilee and quietly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and trust his Father (the Personalized Adjuster) to work out the details of procedure day by day.

136:9.9 (1523.1) By these decisions Jesus set a worthy example for every person on every world throughout a vast universe when he refused to apply material tests to prove spiritual problems, when he refused presumptuously to defy natural laws. And he set an inspiring example of universe loyalty and moral nobility when he refused to grasp temporal power as the prelude to spiritual glory.

136:9.10 (1523.2) If the Son of Man had any doubts about his mission and its nature when he went up in the hills after his baptism, he had none when he came back to his fellows following the forty days of isolation and decisions.

136:9.11 (1523.3) Jesus has formulated a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He will not cater to the physical gratification of the people. He will not deal out bread to the multitudes as he has so recently seen it being done in Rome. He will not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by wonder-working, even though the Jews are expecting just that sort of a deliverer. Neither will he seek to win acceptance of a spiritual message by a show of political authority or temporal power.

136:9.12 (1523.4) In rejecting these methods of enhancing the coming kingdom in the eyes of the expectant Jews, Jesus made sure that these same Jews would certainly and finally reject all of his claims to authority and divinity. Knowing all this, Jesus long sought to prevent his early followers alluding to him as the Messiah.

136:9.13 (1523.5) Throughout his public ministry he wa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dealing with three constantly recurring situations: the clamor to be fed, the insistence on miracles, and the final request that he allow his followers to make him king. But Jesus never departed from the decisions which he made during these days of his isolation in the Perean hills.

제 10 장. 여섯 번째 결정

이러한 기억할만한 고립의 마지막 날,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합류하러 산에서 내려가시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그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셨다. 그는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모든 다른 문제에서, 이제 이 여러 결정-기록에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께 서약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의 얼굴은 영적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10. THE SIXTH DECISION

136:10.1 (1523.6) On the last day of this memorable isolation, before starting down the mountain to join John and his disciples, the Son of Man made his final decision. And this decision he communicated to the Personalized Adjuster in these words, “And in all other matters, as in these now of decision-record, I pledge you I will be subject to the will of my Father.”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journeyed down the mountain. And his face shone with the glory of spiritual victory and moral achievement.

제 137 편 갈릴리에서의 체류기간

⇨ 136

유랜시아 책

13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7 편 갈릴리에서의 체류기간

섹션

소개

- 제 1 장.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를 택함
- 제 2 장.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함
- 제 3 장. 가버나움을 방문함
- 제 4 장. 가나의 결혼식
- 제 5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 제 6 장.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 제 7 장. 4개월의 훈련
- 제 8 장. 왕국에 관한 설교

PAPER 137

TARRYING TIME I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 1. Choosing the First Four Apostles
- 2. Choosing Philip and Nathaniel
- 3. The Visit to Capernaum
- 4. The Wedding at Cana
- 5. Back in Capernaum
- 6. The Events of a Sabbath Day
- 7. Four Months of Training
- 8. Sermon on the Kingdom

소개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예수는 펠라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요한의 무리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는 그날 내내 군중과 함께 지내셨다. 예수는 낙상을 입은 젊은이 하나를 도와주었고, 그 소년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려고 가까이 있는 마을인 펠라로 여행하였다.

INTRODUCTION

137:0.1 (1524.1) EARLY on Saturday morning, February 23, A.D. 26, Jesus came down from the hills to rejoin John's company encamped at Pella. All that day Jesus mingled with the multitude. He ministered to a lad who had injured himself in a fall and journeyed to the near-by village of Pella to deliver the boy safely into the hands of his parents.

제 1 장. 첫 번째 네 명의 제자를 택함

이 안식일 동안에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두 명이 예수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요한의 추종자들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로부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부상당한 소년을 데리고 펠라로 가는 여행길에 예수를 동행하였다. 요한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그들 두 사람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기 바로 직전에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오신 이래부터 당신을 계속 관찰해왔고, 당신이 바로 그 새로운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며; 당신의 가르침을 다 납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다;

1. CHOOSING THE FIRST FOUR APOSTLES

137:1.1 (1524.2) During this Sabbath two of John's leading disciples spent much time with Jesus. Of all John's followers one named Andrew was the most profoundly impressed with Jesus; he accompanied him on the trip to Pella with the injured boy. On the way back to John's rendezvous he asked Jesus many questions, and just before reaching their destination, the two paused for a short talk, during which Andrew said: “I have observed you ever since you came to Capernaum, and I believe you are the new Teacher, and though I do not understand all your teaching, I have fully made up my mind to follow

당신께 복종하면서 새로운 왕국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진심에서 우리나온 확신과 기쁜 가슴으로, 앞으로 자신과 함께 사람들 가슴속에 하느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될 열 두 명 중에서 첫 번째 사도로 그를 받아들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사명활동에 대하여 묵묵한 관찰자였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수제자(首弟子)로 있는,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그를 요한의 우두머리 지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수와 안드레가 야영지로 돌아온 후,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의 봉사에 대한 서약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시몬에게도 이 새로운 왕국의 일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가 세베대의 가게에 일하러 왔을 때부터, 나는 그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를 버리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들은 곧 요한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갔다. 요한은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두 충고자들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슬펐으나,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감하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의 임무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안드레는 예수를 한쪽 옆으로 불러내어, 자기 동생도 역시 새로운 왕국의 일을 하는데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씀드렸다. 시몬을 자신의 둘째 사도로 환영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너의 정열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은 왕국의 일에서는 위험하다. 나는 네가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사려 깊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고자 한다.”

펠라에 사는 부상당한 소년의 부모가 그들의 집에서 그 날 밤을 머물러 쉬어가도록 예수께 간청하였고, 예수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안드레와 그의 동생으로부터 떠나시면서,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예수가 그 날 밤을 지내려고 펠라로 돌아가신 후에, 안드레와 시몬이 다가올 왕국 설립에 있어서 자신들이 맡을 봉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동산에서 예수를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헛걸음을 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도착하였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로 받아들여진 조언자들이 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내일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자, 야고보와 요한은 서글펐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알았고 그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 언덕 위에서 여러 날 헤매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you; I would sit at your feet and learn the whole truth about the new kingdom.” And Jesus, with hearty assurance, welcomed Andrew as the first of his apostles, that group of twelve who were to labor with him in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new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7:1.2 (1524.3) Andrew was a silent observer of, and sincere believer in, John's work, and he had a very able and enthusiastic brother, named Simon, who was one of John's foremost disciples. It would not be amiss to say that Simon was one of John's chief supporters.

137:1.3 (1524.4) Soon after Jesus and Andrew returned to the camp, Andrew sought out his brother, Simon, and taking him aside, informed him that he had settled in his own mind that Jesus was the great Teacher, and that he had pledged himself as a disciple. He went on to say that Jesus had accepted his proffer of service and suggested that he (Simon) likewise go to Jesus and offer himself for fellowship in the service of the new kingdom. Said Simon: “Ever since this man came to work in Zebedee's shop, I have believed he was sent by God, but what about John? Are we to forsake him? Is this the right thing to do?” Whereupon they agreed to go at once to consult John. John was saddened by the thought of losing two of his able advisers and most promising disciples, but he bravely answered their inquiries, saying: “This is but the beginning; presently will my work end, and we shall all become his disciples.” Then Andrew beckoned to Jesus to draw aside while he announced that his brother desired to join himself to the service of the new kingdom. And in welcoming Simon as his second apostle, Jesus said: “Simon, your enthusiasm is commendable, but it is dangerous to the work of the kingdom. I admonish you to become more thoughtful in your speech. I would change your name to Peter.”

137:1.4 (1525.1) The parents of the injured lad who lived at Pella had besought Jesus to spend the night with them, to make their house his home, and he had promised. Before leaving Andrew and his brother, Jesus said, “Early on the morrow we go into Galilee.”

137:1.5 (1525.2) After Jesus had returned to Pella for the night, and while Andrew and Simon were yet discussing the nature of their servic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orthcoming kingdom,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arrived upon the scene, having just returned from their long and futile searching in the hills for Jesus. When they heard Simon Peter tell how he and his brother, Andrew, had become the first accepted counselors of the new kingdom, and that they were to leave with their new Master on the morrow for Galilee, both James and John were sad. They had known Jesus for some time, and they loved him. They had searched for him many days in the

그들은 예수행방을 물은 후에, 그를 찾아 서둘러 떠났다.

그들이 예수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깨워서 말하였다: “당신과 그토록 오래 살았던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은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 하며 안드레와 시몬을 새로운 왕국의 첫 번째 연관-동료로 선택하셨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 나서라고 누가 너희를 이끌었는가’를 생각해보아라.” 그들이 언덕에서 오랫동안 그를 찾아 다녔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후에, 예수는 그들에게 덧붙여 말하였다: “너희는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슴 속에 있는 새로운 왕국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너희가 찾던 것은 이미 너희의 혼(魂)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너희는 진정 나의 형제—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필요조차 없는 형제—들이고, 이미 왕국에 들어와 있었으니, 마땅히 기운을 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러자 요한은, “그러면 주(主)여, 야고보와 저도 안드레와 시몬처럼 당신의 새로운 왕국의 연관-동료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대답하게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 각각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이들 다른 사람들이 받아달라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왕국의 영 안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나의 형제들인 너희는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 요청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왕국 안에 있어왔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앞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너희가 내게 청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왕국 협의회 안에서 너희를 세고 있다. 그리고 좋은-의도였지만, 잃어버리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자아-임명된 과업에 몰두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걱정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오히려 모든 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오직 너희 자신을 염려하라.”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책망을 선한 은혜 안에서 받아들였고, 안드레와 시몬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연관-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날 아침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의 충고자들로 뽑힌 사람들을, 훗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믿는 제자들의 무리들과 구별 짓기 위하여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 날 깊은 밤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굳건한 유대 예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자신의 수제자(首弟子) 두 사람을 다가오는 왕국의 갈릴리 영주의 사도로 넘겨줄 것을 침착한 음성으로 선언하였다.

hills, and now they returned to learn that others had been preferred before them. They inquired where Jesus had gone and made haste to find him.

137:1.6 (1525.3) Jesus was asleep when they reached his abode, but they awakened him, saying: “How is it that, while we who have so long lived with you are searching in the hills for you, you prefer others before us and choose Andrew and Simon as your first associates in the new kingdom?” Jesus answered them, “Be calm in your hearts and ask yourselves, ‘who directed that you should search for the Son of Man when he was about his Father’s business?’” After they had recited the details of their long search in the hills, Jesus further instructed them: “You should learn to search for the secret of the new kingdom in your hearts and not in the hills. That which you sought was already present in your souls. You are indeed my brethren — you needed not to be received by me — already were you of the kingdom, and you should be of good cheer, making ready also to go with us tomorrow into Galilee.” John then made bold to ask, “But, Master, will James and I be associates with you in the new kingdom, even as Andrew and Simon?” And Jesus, laying a hand on the shoulder of each of them, said: “My brethren, you were already with me in the spirit of the kingdom, even before these others made request to be received. You, my brethren, have no need to make request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you have been with me in the kingdom from the beginning. Before men, others may take precedence over you, but in my heart did I also number you in the councils of the kingdom, even before you thought to make this request of me. And even so might you have been first before men had you not been absent engaged in a well-intentioned but self-appointed task of seeking for one who was not lost. In the coming kingdom, be not mindful of those things which foster your anxiety but rather at all times concern yourselves only with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who is in heaven.”

137:1.7 (1525.4) James and John received the rebuke in good grace; never more were they envious of Andrew and Simon. And they made ready, with their two associate apostles, to depart for Galilee the next morning. From this day on the term apostle was employed to distinguish the chosen family of Jesus’ advisers from the vast multitude of believing disciples who subsequently followed him.

137:1.8 (1525.5) Late that evening, James, John, Andrew, and Simon held converse with John the Baptist, and with tearful eye but steady voice the stalwart Judean prophet surrendered two of his leading disciples to become the apostles of the Galilean Prince of the coming kingdom.

제 2 장.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함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세례자 요한과 펠라 근처의 강가에서 헤어졌으며, 그 이후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네 제자-사도가 갈릴리로 떠나던 그날, 요한의 추종자 무리들 속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났다. 첫 번째의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전날에, 요한은 안드레와 에즈라에게 예수가 해방자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에즈라는 온화한-성품의 나사렛 목수를 만아들일 것을 거부하였는데,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선지자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이 권세와 큰 영광의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갈릴리의 목수이자 가버나움에서 배를 만드는 이 사람은 그 해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가 요한의 친족이고, 우리 선생님은 심성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이 가짜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요한이 그를 꾸짖자, 그는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곧 남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 집단들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요한은 믿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하나의 교파를 세웠다. 오늘날에도 이 집단들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남아있다.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수와 그의 네 제자-사도들은 아무 탈 없이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인을 지나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길 앞쪽을 향해 바라보던 예수의 눈에 벳세다의 빌립이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는 빌립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새로운 4명의 이 사도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과 함께, 들려오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을 방문하러 펠라로 가는 길이었으며, 예수를 만나자 매우 기뻐하였다. 빌립은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탄복하는 자가 되었었다. 그러나 갈릴리의 가나에 살고 있던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빌립은 그의 친구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아갔고, 나다니엘은 길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베드로는 빌립을 한 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새로운 왕국의 연관-동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으며, 빌립에게도 봉사를 자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빌립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요단강가 노상(路上)에서—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결정해야만 하였다. 이 때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동안 예수는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의 대체적인 일정을 야고보에게 설

2. CHOOSING PHILIP AND NATHANIEL

137:2.1 (1526.1) Sunday morning, February 24, A.D. 26, Jesus took leave of John the Baptist by the river near Pella, never again to see him in the flesh.

137:2.2 (1526.2) That day, as Jesus and his four disciple-apostles departed for Galilee, there was a great tumult in the camp of John's followers. The first great division was about to take place. The day before, John had made his positive pronouncement to Andrew and Ezra that Jesus was the Deliverer. Andrew decided to follow Jesus, but Ezra rejected the mild-mannered carpenter of Nazareth, proclaiming to his associates: "The Prophet Daniel declares that the Son of Man will come with the clouds of heaven, in power and great glory. This Galilean carpenter, this Capernaum boatbuilder, cannot be the Deliverer. Can such a gift of God come out of Nazareth? This Jesus is a relative of John, and through much kindness of heart has our teacher been deceived. Let us remain aloof from this false Messiah." When John rebuked Ezra for these utterances, he drew away with many disciples and hastened south. And this group continued to baptize in John's name and eventually founded a sect of those who believed in John but refused to accept Jesus. A remnant of this group persists in Mesopotamia even to this day.

137:2.3 (1526.3) While this trouble was brewing among John's followers, Jesus and his four disciple-apostles were well on their way toward Galilee. Before they crossed the Jordan, to go by way of Nain to Nazareth, Jesus, looking ahead and up the road, saw one Philip of Bethsaida with a friend coming toward them. Jesus had known Philip aforetime, and he was also well known to all four of the new apostles. He was on his way with his friend Nathaniel to visit John at Pella to learn more about the reported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e was delighted to greet Jesus. Philip had been an admirer of Jesus ever since he first came to Capernaum. But Nathaniel, who lived at Cana of Galilee, did not know Jesus. Philip went forward to greet his friends while Nathaniel rested under the shade of a tree by the roadside.

137:2.4 (1526.4) Peter took Philip to one side and proceeded to explain that they, referring to himself, Andrew, James, and John, had all become associates of Jesus in the new kingdom and strongly urged Philip to volunteer for service. Philip was in a quandary. What should he do? Here, without a moment's warning — on the roadside near the Jordan — there had come up for immediate decision the most momentous question of a lifetime. By this time he was in earnest converse with Peter, Andrew, and John while

명하고 계셨다. 마침내 안드레가 빌립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빌립은 예수가 실제로 위대한 인물이고 아마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으며, 이 일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고, 곧장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요한을 보러 길을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까?”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였다. 빌립은 자기가 해방자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인해 감격하였다.

아직도 뽕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그에게로 가면서, 빌립은 일행에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 달라고 손짓으로 표시하였으며, 나다니엘은 세례자 요한과 도래할 왕국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자기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면서, “나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요한이 선포하였던 해방자를 발견하였다.”라고 외쳤다. 나다니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요셉의 아들인 목수인데, 최근에는 가버나움에 사셨던 나사렛의 예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약간 놀란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의 팔을 끌면서, “가서 만나보자.”라고 말하였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께로 데려갔으며, 그는 진정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자의 얼굴을 인자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안에는 아무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다니엘은 빌립을 돌아보며, “네 말이 맞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주(主) 이시다. 나도 자격이 된다면, 따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나다니엘에게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한 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였다.

이제 예수는 그의 가까운 측근이 될 앞날의 연관-동료들의 절반을 모았는데, 그들 중 다섯은 그가 얼마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전혀 생소한 사람인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나인 마을을 지나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도착하였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소년시절을 지낸 집에서 요셉과 함께 그 날 밤을 지냈다. 예수의 연관-동료들은, 새로 만나게 된 자기들의 선생님이 집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른 금언과 경구의 형태로 쓰인 자신의 필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데 왜 그리도 신경을 쓰시는지 거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아무 곳에도 글씨를 쓰는 것을—먼지나 모래 위를 제외하고는—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Jesus was outlining to James the trip through Galilee and on to Capernaum. Finally, Andrew suggested to Philip, “Why not ask the Teacher?”

137:2.5 (1526.5) It suddenly dawned on Philip that Jesus was a really great man, possibly the Messiah, and he decided to abide by Jesus’ decision in this matter; and he went straight to him, asking, “Teacher, shall I go down to John or shall I join my friends who follow you?” And Jesus answered, “Follow me.” Philip was thrilled with the assurance that he had found the Deliverer.

137:2.6 (1526.6) Philip now motioned to the group to remain where they were while he hurried back to break the news of his decision to his friend Nathaniel, who still tarried behind under the mulberry tree,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many things which he had heard concerning John the Baptist, the coming kingdom, and the expected Messiah. Philip broke in upon these meditations, exclaiming, “I have found the Deliverer, him of whom Moses and the prophets wrote and whom John has proclaimed.” Nathaniel, looking up, inquired, “Whence comes this teacher?” And Philip replied, “He is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the carpenter, more recently residing at Capernaum.” And then, somewhat shocked, Nathaniel asked, “Can any such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But Philip, taking him by the arm, said, “Come and see.”

137:2.7 (1527.1) Philip led Nathaniel to Jesus, who, looking benignly into the face of the sincere doubter, said: “Behold a genuin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 deceit. Follow me.” And Nathaniel, turning to Philip, said: “You are right. He is indeed a master of men. I will also follow, if I am worthy.” And Jesus nodded to Nathaniel, again saying, “Follow me.”

137:2.8 (1527.2) Jesus had now assembled one half of his future corps of intimate associates, five who had for some time known him and one stranger, Nathaniel. Without further delay they crossed the Jordan and, going by the village of Nain, reached Nazareth late that evening.

137:2.9 (1527.3) They all remained overnight with Joseph in Jesus’ boyhood home. The associates of Jesus little understood why their new-found teacher was so concerned with completely destroying every vestige of his writing which remained about the home in the form of the ten commandments and other mottoes and sayings. But this proceeding,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y never saw him subsequently write — except upon the dust or in the sand — made a deep impression upon their minds.

제 3 장. 가버나움을 방문함

3. THE VISIT TO CAPERNAUM

그들 모두가 성읍에서 명성 있는 집안의 처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예수는 사도들을 가나로 보내셨으며, 그 동안 그는 급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동생 유다를 만나기 위해 막달라에 들르셨다.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로운 연관-동료들은 요셉과 예수의 다른 가족들에게, 지난 얼마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예수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해방자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 예수의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결국 어머니가 옳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이상한 형님이, 도래할 그 왕일지도 모른다.”

유다는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있었으며,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지상사명에 대한 굳건한 신봉자가 되었다. 비록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형이 맡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무척 혼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 일찍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희망을 되살려 내었으며 그들의 형이 이스라엘의 해방자임을 믿도록 자기 아들들을 부추겼다.

예수는 월요일 밤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세베대의 집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있던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크고도 유쾌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상당히 활기차 보였고, 초기 나사렛 시절의 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의 세례와 고립 기간 그 직전과 그리고 직후의 몇 년 동안, 그는 점점 더 심각해졌었고 자아-억제적이었었다. 이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장엄한 모습이 보이고 고양되어진 측면이 있는 듯 하였지만, 그는 다시 명랑하였고 즐거워하였다.

마리아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녀는 곧 자기 아들의 초자연적인 유대의 왕으로서의 기적 같은 계시에 모든 팔레스타인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야고보, 유다, 세베대가 퍼붓는 많은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 머무르는 것이 좋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

다음 날인 화요일, 그들 모두는 그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나오미의 결혼식(結婚式)에 참석하러 가나를 향하여 여행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자신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예수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해방자를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널리 퍼뜨렸다. 그들 각자는, 예수가 메시아 능력의 장악을 다가올 가나의 결혼식에서 개시하실 것이며 대단한 권위와 숭고한 위엄으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기대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137:3.1 (1527.4) The next day Jesus sent his apostles on to Cana, since all of them were invited to the wedding of a prominent young woman of that town, while he prepared to pay a hurried visit to his mother at Capernaum, stopping at Magdala to see his brother Jude.

137:3.2 (1527.5) Before leaving Nazareth, the new associates of Jesus told Joseph and other members of Jesus' family about the wonderful events of the then recent past and gave free expression to their belief that Jesus was the long-expected deliverer. And these members of Jesus' family talked all this over, and Joseph said: "Maybe, after all, Mother was right — maybe our strange brother is the coming king."

137:3.3 (1527.6) Jude was present at Jesus' baptism and, with his brother James, had become a firm believer in Jesus' mission on earth. Although both James and Jude were much perplexed as to the nature of their brother's mission, their mother had resurrected all her early hopes of Jesus a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and she encouraged her sons to have faith in their brother as the deliverer of Israel.

137:3.4 (1527.7) Jesus arrived in Capernaum Monday night, but he did not go to his own home, where lived James and his mother; he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Zebedee. All his friends at Capernaum saw a great and pleasant change in him. Once more he seemed to be comparatively cheerful and more like himself as he was during the earlier years at Nazareth. For years previous to his baptism and the isolation periods just before and just after, he had grown increasingly serious and self-contained. Now he seemed quite like his old self to all of them. There was about him something of majestic import and exalted aspect, but he was once again lighthearted and joyful.

137:3.5 (1528.1) Mary was thrilled with expectation. She anticipated that the promise of Gabriel was nearing fulfillment. She expected all Palestine soon to be startled and stunned by the miraculous revelation of her son as the supernatural king of the Jews. But to all of the many questions which his mother, James, Jude, and Zebedee asked, Jesus only smilingly replied: "It is better that I tarry here for a while; I must do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137:3.6 (1527.9) On the next day, Tuesday, they all journeyed over to Cana for the wedding of Naomi, which was to take place on the following day. And in spite of Jesus' repeated warnings that they tell no man about him "until the Father's hour shall come," they insisted on quietly spreading the news abroad that they had found the Deliverer. They each confidently expected that Jesus would inaugurate his assumption of Messianic authority at the forthcoming wedding at Cana, and that he

세례에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의 땅에서의 다가올 과정에서는 많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현시활동과 기적적인 실증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온 시골 사람들은 나단의 아들인 요함과 나오미의 결혼식 피로연에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마리아가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즉위식에 가는 황태후와 같은 기분으로 가나를 향해 여행하였다.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열세 살 되던 해 이후로,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바램이나 희망에 사려 깊고 남측하고 진지하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동정심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무슨 일이 일어날려는지에 대해 속삭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는 다가올 왕국의 영광을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능력과 권세의 현시를 목격하는 현장에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제 4 장. 가나의 결혼식

수요일 정오까지, 보통 결혼 잔치의 네 배가 넘는, 거의 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에 도착하였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수요일에 행해졌고, 초청장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전에 보내졌다. 오전부터 오후의 이른 시간까지, 이것은 결혼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의 공식 연회장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유명인사가 된 이 갈릴리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 하였는데, 예수는 젊은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결혼 예비 의식을 인도하는 것에 예수가 동의하자 모두 기쁨을 향유하였다.

예수는 이제 자신의 인간 실존과, 신성한 인간-이전의 실존, 그리고 인간과 신성한 본성이 병합되고, 또는 융합된 지위를 속속들이 자아-의식하고 계셨다. 완전한 균형으로, 순간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개인적 특권을 취하실 수 있었다.

그 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는 점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특히 자신의 가족과 여섯 제자-사도들까지도 어떤 놀랄만하고 초자연적인 현시활동으로 다가올 왕국을 그가 적절하게 발표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일찍,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 함께 예수계로 가서, 결혼 예식의 어떤 시간과 어떤 시점

would do so with great power and sublime grandeur. They remembered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e phenomena attendant upon his baptism, and they believed that his future course on earth would be marked by increasing manifestations of supernatural wonders and miraculous demonstrations. Accordingly, the entire countryside was preparing to gather together at Cana for the wedding feast of Naomi and Johab the son of Nathan.

137:3.7 (1527.10) Mary had not been so joyous in years. She journeyed to Cana in the spirit of the queen mother on the way to witness the coronation of her son. Not since he was thirteen years old had Jesus' family and friends seen him so carefree and happy, so thoughtful and understanding of the wishes and desires of his associates, so touchingly sympathetic. And so they all whispered among themselves, in small groups, wondering what was going to happen. What would this strange person do next? How would he usher in the glory of the coming kingdom? And they were all thrilled with the thought that they were to be present to see the revelation of the might and power of Israel's God.

4. THE WEDDING AT CANA

137:4.1 (1528.4) By noon on Wednesday almost a thousand guests had arrived in Cana, more than four times the number bidden to the wedding feast. It was a Jewish custom to celebrate weddings on Wednesday, and the invitations had been sent abroad for the wedding one month previously. In the forenoon and early afternoon it appeared more like a public reception for Jesus than a wedding. Everybody wanted to greet this near-famous Galilean, and he was most cordial to all, young and old, Jew and gentile. And everybody rejoiced when Jesus consented to lead the preliminary wedding procession.

137:4.2 (1528.5) Jesus was now thoroughly self-conscious regarding his human existence, his divine pre-existence, and the status of his combined, or fused, human and divine natures. With perfect poise he could at one moment enact the human role or immediately assume the personality prerogatives of the divine nature.

137:4.3 (1528.6) As the day wore on, Jesus became increasingly conscious that the people were expecting him to perform some wonder; more especially he recognized that his family and his six disciple-apostles were looking for him appropriately to announce his forthcoming kingdom by some startling and supernatural manifestation.

137:4.4 (1529.1) Early in the afternoon Mary summoned James, and together they made bold

에 자신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현시하려는 지에 대한 그의 계획을, 자기들을 믿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것을 예수에게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특유의 분개를 일으키게 했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냥 가만히 내 옆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얼굴 표정에는 그의 책망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자기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인간 예수에게 큰 실망을 주었으며, 그의 신성을 외부로 실증하라는 그녀의 권유적인 제안에 대하여 자신의 반응한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일이야말로 최근에 그가 언덕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였다. 몇 시간 동안 마리아는 몹시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난 그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의 이상한 행위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야고보와 유다는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고, 한편 예수는 한동안 홀로 있기 위해 떠나가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가슴이 가볍고 즐거워 보였다.

결혼식은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이 귀빈으로부터 어떤 행동이나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예식이 모두 완결되었다. 그러자, 요한에 의해 “해방자”라고 공표되었던 이 목수이자 배 제작자가 어쩌면 자기 권능을 저녁 축제인 결혼 만찬에서 보여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여섯 제자-사도들은 저녁식사 바로 전에 이미 그러한 실증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기대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버려야만 하였는데, 예수가 그들 모두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호기심을 가진 자들을 충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적을 행하러 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연관-동료들과 회의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혼 만찬과 축제 속에서 친교의 밤을 즐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 피로연에 올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충분한 술을 준비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메시아 해방자인 예수의 기대되는 현시활동과 이렇게 가깝게 연관되어지는 사건이 되어간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명한 갈릴리 사람을 그의 손님으로 대접하게 되는 영광을 가져 기쁘기는 하였지만, 결혼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에 공식적인 만찬은 이미 끝났고, 손님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즈음에, 신부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들

to approach Jesus to inquire if he would admit them to his confidence to the extent of informing them at what hour and at what point in connection with the wedding ceremonies he had planned to manifest himself as the “supernatural one.” No sooner had they spoken of these matters to Jesus than they saw they had aroused his characteristic indignation. He said only: “If you love me, then be willing to tarry with me while I wait upon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But the eloquence of his rebuke lay in the expression of his face.

137:4.5 (1529.2) This move of his mother was a great disappointment to the human Jesus, and he was much sobered by his reaction to her suggestive proposal that he permit himself to indulge in some outward demonstration of his divinity. That was one of the very things he had decided not to do when so recently isolated in the hills. For several hours Mary was much depressed. She said to James: “I cannot understand him; what can it all mean? Is there no end to his strange conduct?” James and Jude tried to comfort their mother, while Jesus withdrew for an hour’s solitude. But he returned to the gathering and was once more lighthearted and joyous.

137:4.6 (1529.3) The wedding proceeded with a hush of expectancy, but the entire ceremony was finished and not a move, not a word, from the honored guest. Then it was whispered about that the carpenter and boatbuilder, announced by John as “the Deliverer,” would show his hand during the evening festivities, perhaps at the wedding supper. But all expectance of such a demonstration was effectually removed from the minds of his six disciple-apostles when he called them together just before the wedding supper and, in great earnestness, said: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this place to work some wonder for the gratification of the curious or for the conviction of those who doubt. Rather are we here to wait upon the will of our Father who is in heaven.” But when Mary and the others saw him in consultation with his associates, they were fully persuaded in their own minds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as about to happen. And they all sat down to enjoy the wedding supper and the evening of festive good fellowship.

137:4.7 (1529.4) The father of the bridegroom had provided plenty of wine for all the guests bidden to the marriage feast, but how was he to know that the marriage of his son was to become an event 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expected manifestation of Jesus as the Messianic deliverer? He was delighted to have the honor of numbering the celebrated Galilean among his guests, but before the wedding supper was over, the servants brought him the disconcerting news that the wine was running short. By the time the formal supper had ended and the guests were strolling about in the garden, the mother of the bridegroom confided

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주께님께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안일을 꾸려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가 그를 생각해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야심 찬 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에게 이번 경우의 부탁을 하는 데에는 여전히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었다. 예수가 정원 한 쪽에 혼자서 계실 때, 그의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는, “선한 여인이시여,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였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시간이 왔다고 믿는다;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시 한 번 내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나는 이런 식의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들로 또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하기를, “그렇지만 내 아들이, 나는 그들에게 네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제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풀이 꺾였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예수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의 인간 가슴은 자기를 낳아준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혀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였다: “자, 어머니 마리아여, 곁으로 보기에 매정한 나의 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온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의 일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겠는데—” 말을 잊지 못하고 예수는 잠시 멈추었고, 망설였다. 마리아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예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면서, “내 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아니 차라리 바램이 넘치는 생각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리아는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몰랐으나, 자기가 마침내 자기 맏아들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주장할 것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의 위치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힘을 보여줄 것을 설득하였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정한 우주의 힘과 개인성들의 현존과 그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녀는 실망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다. 마리아가 원했고 하느님-사람이신 예수가 인간적 동정으로 바랐던 포

to Mary that the supply of wine was exhausted. And Mary confidently said: “Have no worry — I will speak to my son. He will help us.” And thus did she presume to speak, notwithstanding the rebuke of but a few hours before.

137:4.8 (1529.5) Throughout a period of many years, Mary had always turned to Jesus for help in every crisis of their home life at Nazareth so that it was only natural for her to think of him at this time. But this ambitious mother had still other motives for appealing to her eldest son on this occasion. As Jesus was standing alone in a corner of the garden, his mother approached him, saying, “My son, they have no wine.” And Jesus answered, “My good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at?” Said Mary, “But I believe your hour has come; cannot you help us?” Jesus replied: “Again I declare that I have not come to do things in this wise. Why do you trouble me again with these matters?” And then, breaking down in tears, Mary entreated him, “But, my son, I promised them that you would help us; won’t you please do something for me?” And then spoke Jesus: “Woman, what have you to do with making such promises? See that you do it not again. We must in all things wait upon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37:4.9 (1530.1)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crushed; she was stunned! As she stood there before him motionless, with the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the human heart of Jesus was overcome with compassion for the woman who had borne him in the flesh; and bending forward, he laid his hand tenderly upon her head, saying: “Now, now, Mother Mary, grieve not over my apparently hard sayings, for have I not many times told you that I have come only to do the will of my heavenly Father? Most gladly would I do what you ask of me if it were a part of the Father’s will — “ and Jesus stopped short, he hesitated. Mary seemed to sense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Leaping up, she threw her arms around Jesus’ neck, kissed him, and rushed off to the servants’ quarters, saying, “Whatever my son says, that do.” But Jesus said nothing. He now realized that he had already said — or rather desirefully thought — too much.

137:4.10 (1530.2) Mary was dancing with glee. She did not know how the wine would be produced, but she confidently believed that she had finally persuaded her first-born son to assert his authority, to dare to step forth and claim his position and exhibit his Messianic power. And, because of the presence and association of certain universe powers and personalities, of which all those present were wholly ignorant, she was not to be disappointed. The wine Mary

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는 각각 20갤런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들어진 물동이 여섯 개가 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 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연 마지막 정결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바쁜 지도 아래, 하인들이 그 큰 돌 물동이들 주위에서 법석을 떠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이 물동이로부터 주전자로 포도주를 퍼 가는 것을 보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은 차츰 깨닫게 되었다.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예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가 행하지 않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 때 사람의 아들은 언덕 위에서 만났던 자신의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경고를 기억해 내셨다. 시간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어떤 세력이나 개인성도 그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무능력하다는 점을 조절자가 얼마나 강조하여 자신에게 경고했었는지를 회고하였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힘의 변환자들, 중도자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개인성들이 물과 필요한 요소들 주위에 집합해 있었기에, 우주적 창조자 주권자의 표현되어진 소망 앞에서, 그러한 포도주의 순간적인 출현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아들의 바램이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이중적 지시 때문에 감절로 확실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은 아니었다. 어떤 자연법칙도 수정되었거나 파기되었거나 혹은 초월되지 않았다. 천상의 존재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 필요로 하는 화학적 요소를 조립하면서, 그들은 단지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과정도 파기하지 않았다. 가나에서의 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독립과, 필요한 화학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조립하는 데서 초인간 대리자들이 개입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창조자의 대리자들에 의하여 평상시의 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소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의 실행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거역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였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퍼내어 “연회장의 지휘자”인 신랑 들러리에게 가져다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신랑을 불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desired and which Jesus, the God-man, humanly and sympathetically wished for, was forthcoming.

137:4.11 (1530.3) Near at hand stood six waterpots of stone, filled with water, holding about twenty gallons apiece. This water was intended for subsequent use in the final purification ceremonies of the wedding celebration. The commotion of the servants about these huge stone vessels, under the busy direction of his mother, attracted Jesus' attention, and going over, he observed that they were drawing wine out of them by the pitcherful.

137:4.12 (1530.4) It was gradually dawning upon Jesus what had happened. Of all persons present at the marriage feast of Cana, Jesus was the most surprised. Others had expected him to work a wonder, but that was just what he had purposed not to do. And then the Son of Man recalled the admonition of his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 in the hills. He recounted how the Adjuster had warned him about the inability of any power or personality to deprive him of the creator prerogative of independence of time. On this occasion power transformers, midwayers, and all other required personalities were assembled near the water and other necessary elements, and in the face of the expressed wish of the Universe Creator Sovereign, there was no escaping the instantaneous appearance of wine. And this occurrence was made doubly certain since the Personalized Adjuster had signified that the execution of the Son's desire was in no way a contravention of the Father's will.

137:4.13 (1530.5) But this was in no sense a miracle. No law of nature was modified, abrogated, or even transcended. Nothing happened but the abrogation of time in association with the celestial assembly of the chemical elements requisite for the elaboration of the wine. At Cana on this occasion the agents of the Creator made wine just as they do by the ordinary natural processes except that they did it independently of time and with the intervention of superhuman agencies in the matter of the space assembly of the necessary chemical ingredients.

137:4.14 (1531.1) Furthermore it was evident that the enactment of this so-called miracle was not contrary to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else it would not have transpired, since Jesus had already subjected himself in all things to the Father's will.

137:4.15 (1531.2) When the servants drew this new wine and carried it to the best man, the “ruler of the feast,” and when he had tasted it, he called to the bridegroom, saying: “It is the custom to set out firs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o bring forth the inferior fruit of the vine; but you have kept the best of the wine until the last of the feast.”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던 기적을 예수가 의도적으로 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크게 향유하였지만, 예수는 정원의 외진 곳으로 물러나 잠시 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에피소드는 그 상황 아래에서는 그의 개인적 통제 범위를 넘었다는 것과, 또한 그의 아버지의 뜻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셨다. 그가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대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무척 당황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던 특별한 행적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혼자 집 꼭대기로 올라가셨다.

예수는 이제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반복적인 에피소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사람의 아들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기 전에 여러 번 발생했었다.

제 5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많은 손님들은 결혼 연회가 있는 그 주간 내내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는 자기가 새로 뽑은 제자-사도들—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가나에 있던 예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였으며, 예수의 막내 동생인 유다는 그를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직접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이 여행 도중에 예수는 새로 뽑은 연관-동료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였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세포리와 티베리우스 도시들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그 날 밤 저녁식사 후에, 세베대와 살로메의 집에서, 예수의 모든 지상(地上)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들 중의 하나가 열렸다. 단지 여섯 명의 사도들만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유다는 그들이 막 헤어지려고 할 때 도착하였다.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가나에서부터 벳세다까지 공중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활기가 넘쳤고 사람의 아들의 측근동료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으로 전율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가 누구이며, 땅에서의 그의 사명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으며; 베드로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낙심하였다. 단지 생각이 깊은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의 말들에 대해 대꾸를 할 수 있었다. 예수가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137:4.16 (1531.3)} Mary and the disciples of Jesus were greatly rejoiced at the supposed miracle which they thought Jesus had intentionally performed, but Jesus withdrew to a sheltered nook of the garden and engaged in serious thought for a few brief moments. He finally decided that the episode was beyond his personal control under the circumstances and, not being adverse to his Father's will, was inevitable. When he returned to the people, they regarded him with awe; they all believed in him as the Messiah. But Jesus was sorely perplexed, knowing that they believed in him only because of the unusual occurrence which they had just inadvertently beheld. Again Jesus retired for a season to the housetop that he might think it all over.

^{137:4.17 (1531.4)} Jesus now fully comprehended that he must constantly be on guard lest his indulgence of sympathy and pity become responsible for repeated episodes of this sort. Nevertheless, many similar events occurred before the Son of Man took final leave of his mortal life in the flesh.

5. BACK IN CAPERNAUM

^{137:5.1 (1531.5)} Though many of the guests remained for the full week of wedding festivities, Jesus, with his newly chosen disciple-apostles — James, John, Andrew, Peter, Philip, and Nathaniel — departed very early the next morning for Capernaum, going away without taking leave of anyone. Jesus' family and all his friends in Cana were much distressed because he so suddenly left them, and Jude, Jesus' youngest brother, set out in search of him. Jesus and his apostles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Zebedee at Bethsaida. On this journey Jesus talked over many things of importance to the coming kingdom with his newly chosen associates and especially warned them to make no mention of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He also advised them to avoid the cities of Sepphoris and Tiberias in their future work.

^{137:5.2 (1531.6)} After supper that evening, in this home of Zebedee and Salome, there was hel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ferences of all Jesus' earthly career. Only the six apostles were present at this meeting; Jude arrived as they were about to separate. These six chosen men had journeyed from Cana to Bethsaida with Jesus, walking, as it were, on air. They were alive with expectancy and thrilled with the thought of having been selected as close associates of the Son of Man. But when Jesus set out to make clear to them who he was and what was to be his mission on earth and how it might possibly end, they were stunned. They could not grasp what he was telling them. They were speechless; even Peter was crushed beyond expression. Only the deep-thinking Andrew dared to make reply to Jesus' words of counsel.

것을 보셨을 때, 또한 그들 안에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셨으며, 그 동안에 그는 동생인 유다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다는 예수에게 작별을 고하기 전에,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형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며 다가올 그 왕국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집인 막달라를 향해 떠나갔다.

그 날 밤 예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밤외투를 두르고 호숫가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였다. 그 날 밤의 긴 명상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요한이 예언하였고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자를 성취하는 방편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다윗 왕좌를 계승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좀 더 영적으로 기술했던 옛날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의 말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자였다. 그는 다시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 복잡한 경우의 마지막 실마리를 푸는 일은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날 아침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기쁨이 없었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였고, 식사 후에 자신의 주위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기에서 얼마동안 체류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들은, 왕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구자(先驅者)가 일을 완결하면, 우리가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라고 지도하셨으며, 한편 자신도 세베대와 베록공소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설교하기로 되어있는 회당에서 만날 것과 안식일 오후에는 함께 회의를 갖도록 정하였다.

제 6 장.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예수의 첫 번째 대중을 위한 출현은 안식일인 서기 26년 3월 2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 회당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야기 이외에, 이제는 가나로부터의 물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증강되었다. 예

When Jesus perceived that they did not comprehend his message, when he saw that their ideas of the Jewish Messiah were so completely crystallized, he sent them to their rest while he walked and talked with his brother Jude. And before Jude took leave of Jesus, he said with much feeling: “My father-brother, I never have understood you. I do not know of a certainty whether you are what my mother has taught us, and I do not fully comprehend the coming kingdom, but I do know you are a mighty man of God. I heard the voice at the Jordan, and I am a believer in you, no matter who you are.” And when he had spoken, he departed, going to his own home at Magdala.

137:5.3 (1532.1) That night Jesus did not sleep. Donning his evening wraps, he sat out on the lake shore thinking, thinking until the dawn of the next day. In the long hours of that night of meditation Jesus came clearly to comprehend that he never would be able to make his followers see him in any other light than as the long-expected Messiah. At last he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way to launch his message of the kingdom except as the fulfillment of John's prediction and as the one for whom the Jews were looking. After all, though he was not the Davidic type of Messiah, he was truly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utterances of the more spiritually minded of the olden seers. Never again did he wholly deny that he was the Messiah. He decided to leave the final untangling of this complicated situation to the outworking of the Father's will.

137:5.4 (1532.2) The next morning Jesus joined his friends at breakfast, but they were a cheerless group. He visited with them and at the end of the meal gathered them about him, saying: “It is my Father's will that we tarry hereabouts for a season. You have heard John say that he came to prepare the way for the kingdom; therefore it behooves us to await the completion of John's preaching. When the forerunner of the Son of Man shall have finished his work, we will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tidings of the kingdom.” He directed his apostles to return to their nets while he made ready to go with Zebedee to the boatshop, promising to see them the next day at the synagogue, where he was to speak, and appointing a conference with them that Sabbath afternoon.

6. THE EVENTS OF A SABBATH DAY

137:6.1 (1532.3) Jesus' first public appearance following his baptism was in the Capernaum synagogue on Sabbath, March 2, A.D. 26. The synagogue was crowded to overflowing. The story of the baptism in the Jordan was now augmented by the fresh news from Cana about the water and

수는 여섯 명의 사도들을 귀빈석에 앉히셨고,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앉히셨다. 전날 밤에 가버나움으로부터 돌아와 있었던 그의 어머니도 역시 그곳에 왔는데, 그녀는 회당의 여인들 처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청중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 날 설교하기로 되어있는 사람의 본성과 권한에 어울리는, 증거가 되는 초자연적 힘의 비범한 현시활동을 목격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가 일어서자, 회당의 통치자는 그에게 성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으며,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부터 읽었다: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무릇 영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보살피리라,” 떨고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 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영광되게 하여라. 그가 기쁨 가운데 너희에게 오시리라 하였으니 다른 모든 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음성이 도시에서부터 오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주님께서 보옵하시는 음성으로다. 이르시되: ‘그 여인은 산고에 시달리기 전에 낳았으며, 아픔이 오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를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가슴이 기쁨을 향유하리라.’”

읽기를 끝마치자 예수는 두루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자리에 앉기 전에 그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 참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날 오후에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를 포함한 사도들은 배를 타고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 예수가 그들에게 도래할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닻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목요일 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낚들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왕국이 다가오는 시간”까지는 그들의 정규적인 직무에 몰두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자신도 정기적으로 배 작업장에서 일하려 돌아감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예수는 그들의 앞날 일을 위한 공부와 준비를 위해 매일 저녁 세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the wine. Jesus gave seats of honor to his six apostles, and seated with them were his brothers in the flesh James and Jude. His mother, having returned to Capernaum with James the evening before, was also present, being seated in the women's section of the synagogue. The entire audience was on edge; they expected to behold some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supernatural power which would be a fitting testimony to the nature and authority of him who was that day to speak to them. But they were destined to disappointment.

137:6.2 (1532.4) When Jesus stood up, the ruler of the synagogue handed him the Scripture roll, and he read from the Prophet Isaiah: “Thus says the Lord: ‘The heaven is my throne, and the earth is my footstool. Where is the house that you built for me? And where is the place of my dwelling? All these things have my hands made,’ says the Lord. ‘But to this man will I look, even to him who is poor and of a contrite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who tremble and fear: ‘Your brethren hated you and cast you out for my name’s sake.’ But let the Lord be glorified. He shall appear to you in joy, and all others shall be ashamed. A voice from the city, a voice from the temple, a voice from the Lord says: ‘Before she travailed, she brought forth; before her pain came, she was delivered of a man child.’ Who has heard such a thing? Shall the earth be made to bring forth in one day? Or can a nation be born at once? But thus says the Lord: ‘Behold I will extend peace like a river, and the glory of even the gentiles shall be like a flowing stream.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s, so will I comfort you. And you shall be comforted even in Jerusalem. And when you see these things, your heart shall rejoice.’”

137:6.3 (1533.1) When he had finished this reading, Jesus handed the roll back to its keeper. Before sitting down, he simply said: “Be patient and you shall see the glory of God; even so shall it be with all those who tarry with me and thus learn to do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And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wondering what was the meaning of all this.

137:6.4 (1533.2) That afternoon Jesus and his apostles, with James and Jude, entered a boat and pulled down the shore a little way, where they anchored while he talked to them about the coming kingdom. And they understood more than they had on Thursday night.

137:6.5 (1533.3) Jesus instructed them to take up their regular duties until “the hour of the kingdom comes.” And to encourage them, he set an example by going back regularly to work in the boatshop. In explaining that they should spend three hours every evening in study and preparation for their future work, Jesus further said: “We will all

"아버지께서 내게 너희를 부르라고 청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이 근처에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 각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각 늘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에게도 나에게 대해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왕국은 소란스럽고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슴 안에서 그리고 왕국의 협의회에 너희와 함께 하도록 요청받아야 할 자들의 가슴에 나의 아버지께서 기록하실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신뢰하며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머지않아 나의 개인적 연관-동료가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관대하라. 항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 너희 자신을 왕국의 부름에 준비되어 있도록 갖추라. 내 아버지께 대한 봉사에서 너희는 커다란 기쁨을 체험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너희는 또한 고난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건대 오로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그로서 많은 사람이 왕국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국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며 모든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불리울 것이다. 그렇지만 거짓된 희망을 품도록 되지 말라; 세상은 내 말에 걸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친구들인 너희들도, 너희의 혼란스런 마음에 내가 펼쳐 보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류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표적 탐구자들의 세대를 향하여 수고하려고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의해 보내졌다는 증거로 이적-행하기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의 계시 안에서 내 사명에 대한 신임장을 인지하는 데에 더딜 것이다."

그 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에, 예수는 물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아버지시여, 이들 작은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의심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나를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저들도 하나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 7 장. 4개월의 훈련

4개월—3월, 4월, 5월, 6월—에 걸치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예수는 여섯 명의 측근동료들과 친동생 야고보에게 100번이 넘는 길고도 진지한,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하였다. 유다는 가족 중의 하나가 아픈 연고로 거의 이 강의를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나, 이 긴 기다림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 동안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 대해 거의 포기하였다. 가나에서 고조되었던 그녀의 신앙은 이제 처음으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지 항상 되풀이했던 푸념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었는데: "나는 그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는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러한 4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친동생 한명

remain hereabout until the Father bids me call you. Each of you must now return to his accustomed work just as if nothing had happened. Tell no man about me and remember that my kingdom is not to come with noise and glamor, but rather must it come through the great change which my Father will have wrought in your hearts and in the hearts of those who shall be called to join you in the councils of the kingdom. You are now my friends; I trust you and I love you; you are soon to become my personal associates. Be patient, be gentle. Be ever obedient to the Father's will. Make yourselves ready for the call of the kingdom. While you will experience great joy in the service of my Father, you should also be prepared for trouble, for I warn you that it will be only through much tribulation that many will enter the kingdom. But those who have found the kingdom, their joy will be full, and they shall be called the blest of all the earth. But do not entertain false hope; the world will stumble at my words. Even you, my friends, do not fully perceive what I am unfolding to your confused minds. Make no mistake; we go forth to labor for a generation of sign seekers. They will demand wonder-working as the proof that I am sent by my Father, and they will be slow to recognize in the revelation of my Father's love the credentials of my mission."

137:6.6 (1533.4) That evening, when they had returned to the land, before they went their way, Jesus, standing by the water's edge, prayed: "My Father, I thank you for these little ones who, in spite of their doubts, even now believe. And for their sakes have I set myself apart to do your will. And now may they learn to be one, even as we are one."

7. FOUR MONTHS OF TRAINING

137:7.1 (1533.5) For four long months — March, April, May, and June — this tarrying time continued; Jesus held over one hundred long and earnest, though cheerful and joyous, sessions with these six associates and his own brother James. Owing to sickness in his family, Jude seldom was able to attend these classes. James, Jesus' brother, did not lose faith in him, but during these months of delay and inaction Mary nearly despaired of her son. Her faith, raised to such heights at Cana, now sank to new low levels. She could only fall back on her so oft-repeated exclamation: "I cannot understand him. I cannot figure out what it all means." But James's wife did much to bolster Mary's courage.

137:7.2 (1534.1) Throughout these four months these

이 포함된 이들 일곱 명의 믿는 자들은 예수와 점점 더 친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 하느님-사람과 살고 있다는 관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이 그를 랍비라고 부르기는 하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워나갔다. 예수는 그들과 그렇게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성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개인적 친절함을 소유하고 계셨다. 그들은 하느님이 육신화 되신 분인, 그 “하느님과 친구 됨”이 실제로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믿는 자들 전체 집단을 혹독하게 시험하였다. 아무 일도, 정말 아무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매일 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을 해나갔고, 한편 밤에는 예수의 곁에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개인성과, 밤이면 밤마다 그가 그들에게 해주는 친절한 말들에 의해서 단합되어 갔다.

이 기다림과 배움의 기간은,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에 갈릴리에서 왕국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자고, 반복하여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예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몬아, 인내심을 가져라.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가 좀 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베드로를 종종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그는, 하느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가 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았다.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회당에서 단지 두 번 설교하였다. 이러한 여러 주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그의 세례와 가나에서의 포도주에 관한 소문은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 기간 동안에 더 이상의 명백한 기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들이 벳새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은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는 곧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첩자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을 썼다. 헤롯은, 가버나움에서 조용하게 계속 사명활동하고 있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가다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다른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당파에 대해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자기 연관-동료들을 가르치기에 힘쓰셨다. 예수의 말씀은 항상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그들 전부를 설복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는 않는다.”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모두 합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스스로 “동료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히브리 경전에 분명하게 기초를 두지 않은, 오직 후대의 예언서인 다니엘에서만 언급되어진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면에서 유대인 집단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

seven believers, one his own brother in the flesh, were getting acquainted with Jesus; they were getting used to the idea of living with this God-man. Though they called him Rabbi, they were learning not to be afraid of him. Jesus possessed that matchless grace of personality which enabled him so to live among them that they were not dismayed by his divinity. They found it really easy to be “friends with God,” God incarnat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is time of waiting severely tested the entire group of believers. Nothing, absolutely nothing, miraculous happened. Day by day they went about their ordinary work, while night after night they sat at Jesus’ feet. And they were held together by his matchless personality and by the gracious words which he spoke to them evening upon evening.

137:7.3 (1534.2) This period of waiting and teaching was especially hard on Simon Peter. He repeatedly sought to persuade Jesus to launch forth with the preaching of the kingdom in Galilee while John continued to preach in Judea. But Jesus’ reply to Peter ever was: “Be patient, Simon. Make progress. We shall be none too ready when the Father calls.” And Andrew would calm Peter now and then with his more seasoned and philosophic counsel. Andrew was tremendously impressed with the human naturalness of Jesus. He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how one who could live so near God could be so friendly and considerate of men.

137:7.4 (1534.3) Throughout this entire period Jesus spoke in the synagogue but twice. By the end of these many weeks of waiting the reports about his baptism and the wine of Cana had begun to quiet down. And Jesus saw to it that no more apparent miracles happened during this time. But even though they lived so quietly at Bethsaida, reports of the strange doings of Jesus had been carried to Herod Antipas, who in turn sent spies to ascertain what he was about. But Herod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preaching of John. He decided not to molest Jesus, whose work continued along so quietly at Capernaum.

137:7.5 (1534.4) In this time of waiting Jesus endeavored to teach his associates what their attitude should be toward the various religious groups and the political parties of Palestine. Jesus’ words always were, “We are seeking to win all of them, but we are not of any of them.”

137:7.6 (1534.5) The scribes and rabbis, taken together, were called Pharisees. They referred to themselves as the “associates.” In many ways they were the progressive group among the Jews, having adopted many teachings not clearly found in the Hebrew scriptures, such as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 doctrine only mentioned

사두개인들은 사제들과 특정한 부유층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법의 집행에서의 세부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파(分派)라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종교적인 집단들이었다.

에세네 사람들은 하나의 진정한 종교적 교파로서 마카비 반란 동안에 시작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격조건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많은 믿음들과 실천들을 받아들였고, 수도원에서 형제신분으로 살면서 결혼을 금하였으며, 모든 소유물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천사들에 관한 가르침을 전문으로 삼고 있었다.

열심당원들은 열렬한 유대 애국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수하고자 하였다.

헤롯당원들은 순수한 정치적 집단으로써 헤롯 왕조의 복원에 의한, 직접적인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옹호하였다.

팔레스타인 한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적 가르침과 유사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다.”

비교적 작은 집단인 나지르인 형제들을 포함하여, 이들 집단들과 교파들 모두는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민족적 해방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그의 제자들은 사상의 학파와 실천들 중의 어느 하나와도 특별한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사람의 아들은 나지르인은 물론 에세네도 아니었던 것이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들을 내보내셨을 때, 그는 “하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계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셨다.

그들이 대중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와 일곱 명의 제자들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 저녁을 회당에서 보냈다. 격렬하게 대중을 위한 일을 수행하던 훗날에 가서, 사도들은 이 4개월이 주(主)와 함께 지냈던 모든 나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예수는 이들에게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힘의 한도를 벗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인하여 혼란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않

by a later prophet, Daniel.

137:7.7 (1534.6) The Sadducees consisted of the priesthood and certain wealthy Jews. They were not such sticklers for the details of law enforcement. The Pharisees and Sadducees were really religious parties, rather than sects.

137:7.8 (1534.7) The Essenes were a true religious sect, originating during the Maccabean revolt, whose requirements were in some respects more exacting than those of the Pharisees. They had adopted many Persian beliefs and practices, lived as a brotherhood in monasteries, refrained from marriage,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They specialized in teachings about angels.

137:7.9 (1535.1) The Zealots were a group of intense Jewish patriots. They advocated that any and all methods were justified in the struggle to escape the bondage of the Roman yoke.

137:7.10 (1535.2) The Herodians were a purely political party that advocated emancipation from the direct Roman rule by a restoration of the Herodian dynasty.

137:7.11 (1535.3) In the very midst of Palestine there lived the Samaritans, with whom “the Jews had no dealings,” notwithstanding that they held many views similar to the Jewish teachings.

137:7.12 (1535.4) All of these parties and sects, including the smaller Nazarite brotherhood, believed in the sometime coming of the Messiah. They all looked for a national deliverer. But Jesus was very positive in making it clear that he and his disciples would not become allied to any of these schools of thought or practice. The Son of Man was to be neither a Nazarite nor an Essene.

137:7.13 (1535.5) While Jesus later directed that the apostles should go forth, as John had, preaching the gospel and instructing believers, he laid emphasis o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tid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unfailingly impressed upon his associates that they must “show forth love, compassion, and sympathy.” He early taught his followers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 spiritual experience having to do with the enthronement of God in the hearts of men.

137:7.14 (1535.6) As they thus tarried before embarking on their active public preaching, Jesus and the seven spent two evenings each week at the synagogue in the study of the Hebrew scriptures. In later years after seasons of intense public work, the apostles looked back upon these four months as the most precious and profitable of all their association with the Master. Jesus taught these men all they could assimilate. He did not make the mistake of overteaching them. He did not precipitate confusion by the presentation of truth too far beyond their capacity to comprehend.

았다.

제 8 장. 왕국에 관한 설교

6월 22일 안식일에, 그들이 첫 번째 설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는 사도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오신 이래 두 번째로 회당의 설교단을 맡아 설교하게 되었다.

“왕국”에 관한 이 설교를 하기 며칠 전, 예수가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요한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 드렸다. 예수는 다시 한 번 그의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으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왕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자.”

예수가 목공소에서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이었다. 베드로는 목공소에서 달려 나갔고, 오후 중반 경에 모든 연관-동료들을 호숫가의 작은 숲에 모아놓은 다음, 예수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주(主)는 다른 작은 숲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가 그 날 밤 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와서 음식을 구할 때까지는 그를 만나볼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돌아오는 안식일에 그가 설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생 야고보를 회당으로 보내셨다. 회당의 통치자는 예수가 다시 예배봉사를 기꺼이 수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가 자신의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비친 성과였던, 이 기억에 남을만한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읽었다: “너희는 내게 사제들의 왕국,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훼는 우리의 심판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요. 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야훼는 나의 왕이시며 하느님이시요. 그는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 이 왕국 안에 이스라엘 위에 사랑하시는-친절함이 내려오도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의 영광은 복되도다.”

다 읽으신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아버지 왕국의 설립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이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열매인 자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모든 혼들을 맞이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자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기 영(靈)을 보내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을 모두 완결할 때,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적 납득과 신성한 정의로움으로 도래할 왕국에 자리 잡게 할

8. SERMON ON THE KINGDOM

137:8.1 (1535.7) On Sabbath, June 22, shortly before they went out on their first preaching tour and about ten days after John's imprisonment, Jesus occupied the synagogue pulpit for the second time since bringing his apostles to Capernaum.

137:8.2 (1535.8) A few days before the preaching of this sermon on “The Kingdom,” as Jesus was at work in the boatshop, Peter brought him the news of John's arrest. Jesus laid down his tools once more, removed his apron, and said to Peter: “The Father's hour has come. Let us make ready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137:8.3 (1535.9) Jesus did his last work at the carpenter bench on this Tuesday, June 18, A.D. 26. Peter rushed out of the shop and by midafternoon had rounded up all of his associates, and leaving them in a grove by the shore, he went in quest of Jesus. But he could not find him, for the Master had gone to a different grove to pray. And they did not see him until late that evening when he returned to Zebedee's house and asked for food. The next day he sent his brother James to ask for the privilege of speaking in the synagogue the coming Sabbath day. And the ruler of the synagogue was much pleased that Jesus was again willing to conduct the service.

137:8.4 (1536.1) Before Jesus preached this memorable sermon on the kingdom of God, the first pretentious effort of his public career, he read from the Scriptures these passages: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 holy people. Yahweh is our judge, Yahweh is our lawgiver, Yahweh is our king; he will save us. Yahweh is my king and my God. He is a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Loving-kindness is upon Israel in this kingdom. Blessed be the glory of the Lord for he is our King.”

137:8.5 (1536.2) When he had finished reading, Jesus said:

137:8.6 (1536.3) “I have come to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And this kingdom shall include the worshiping souls of Jew and gentile, rich and poor, free and bond, for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his love and his mercy are over all.

137:8.7 (1536.4) “The Father in heaven sends his spirit to indwell the minds of men, and when I shall have finished my work on earth, likewise shall the Spirit of Truth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the spirit of my Father and the Spirit of Truth shall establish you in the coming kingdom of spiritual

것이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힘이 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영주로서, 영속하는 아버지께 대한 계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 왕국의 설립과 그것의 팽창을 위하여 싸우지만, 나의 제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그들의 영적 승리에 의하여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들은 기쁨과 정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먼저 왕국에 들어가기를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하여 아버지가 지닌 것과 같은, 성격의 고귀함을 얻고자 분투를 시작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곧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지함을 다해 말하겠다: 어린아이의 의존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과 신뢰하는 의존으로 왕국 안에 들어가기를 찾아 나서지 않는 한, 너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입장을 허락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왕국이 있다' 혹은 '저기에 왕국이 있다'고 와서 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이는 하늘의 영이 가르치고 사람의 혼을 인도하는 곳에, 실체 안에서 하늘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왕국이 성령(聖靈) 안에 있는 정의로움, 평화, 기쁨인 것이다.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함과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주었지만, 하늘왕국에 들어갈 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을 것이며, 단지 봉사를 통하여 완전성을 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유사한 창조체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그의 왕국에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곧 앉아 있게 되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친구들을 기꺼이 섬기면, 너희들도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 왕국은 비옥한 땅에 떨어져 자라나는 씨와 같다. 그것은 충만한 열매를 하루아침에 맺지 않는다. 사람의 혼속에 왕국을 세우는 것과 왕국이 영속하는 정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충만한 열매로 무르익는 때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선언하는 이 왕국은 힘과 풍요의 수단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완전하게 하는 봉사 안에서 진보하는 정의로움과 증가하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일생이다. 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결국에는 완전 하라는 것이

understanding and divine righteousness.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e Son of Man will not lead forth armies in batt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throne of power or a kingdom of worldly glory. When my kingdom shall have come, you shall know the Son of Man as the Prince of Peace, the revelation of the everlasting Father. The children of this world fight for the establishment and enlargement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my disciples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y their moral decisions and by their spirit victories; and when they once enter therein, they shall find joy, righteousness, and eternal life.

137:8.8 (1536.5) “Those who first seek to enter the kingdom, thus beginning to strive for a nobility of character like that of my Father, shall presently possess all else that is needful. But I say to you in all sincerity: Unless you seek entrance into the kingdom with the faith and trusting dependence of a little child, you shall in no wise gain admission.

137:8.9 (1536.6) “Be not deceived by those who come saying here is the kingdom or there is the kingdom, for my Father's kingdom concerns not things visible and material. And this kingdom is even now among you, for where the spirit of God teaches and leads the soul of man, there in reality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this kingdom of God 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137:8.10 (1536.7) “John did indeed baptize you in token of repentance and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but when you enter the heavenly kingdom,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137:8.11 (1536.8) “In my Father's kingdom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only those who seek perfection through service, for I declare that he who would be great in my Father's kingdom must first become server of all. If you are willing to serve your fellows, you shall sit down with me in my kingdom, even as, by serving in the similitude of the creature, I shall presently sit down with my Father in his kingdom.

137:8.12 (1536.9) “This new kingdom is like a seed growing in the good soil of a field. It does not attain full fruit quickly. There is an interval of tim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in the soul of man and that hour when the kingdom ripens into the full fruit of everlasting righteousness and eternal salvation.

137:8.13 (1536.10) “And this kingdom which I declare to you is not a reign of power and plenty.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a matter of meat and drink but rather a life of progressive righteousness and increasing joy in the perfecting service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has not the Father said of his children of the world, 'It is my will that

나의 뜻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짐을 지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래할 왕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들에게 신성한 휴식을 취하게 해 주기 위한 새롭고 나은 길을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들에서 너희가 치르는 비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몇 갑절의 많은 기쁨과 영적 향상을, 그리고 다가오는 시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집단의 행진이나 이 세상 왕국을 뒤집어엎는 것 또는 억압에서의 해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풍부한 해방과 기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은 영속하는 영토이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파라다이스에서 그의 영광의 오른 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다가오는 시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의로운 체하는 자들을 부르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신성한 완전성의 정의로 움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모든 자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요한은 와서 왕국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려고 회개하라 설교했다; 나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값으로, 하느님의 선물, 신앙을 선포하러 와 있다. 너희가 단지 나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들에 의해 깜짝 놀랐다. 그의 제자들도 놀라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느님-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자의 삼분의 일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언을 믿었다; 약 삼분의 일은 기대하던 왕국에 대한 그토록 순수하게 영적인 개념을 거부하려고 그들 가슴속에서 각오하였고, 그 나머지 삼분의 일의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었다.

they should eventually be perfect, even as I am perfect.’

137:8.14 (1537.1) “I have come to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I have not come to add to the heavy burdens of those who would enter this kingdom. I proclaim the new and better way, and those who are able to enter the coming kingdom shall enjoy the divine rest. And whatever it shall cost you in the things of the world, no matter what price you may pay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 shall receive manifold more of joy and spiritual progress in this world,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137:8.15 (1537.2)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waits not upon marching armies, upon overturned kingdoms of this world, nor upon the breaking of captive yokes.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all who enter therein shall find abundant liberty and joyous salvation.

137:8.16 (1537.3) “T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dominion. Those who enter the kingdom shall ascend to my Father;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right hand of his glory in Paradise. And all wh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come the sons of God, and in the age to come so shall they ascend to the Father. And I have not come to call the would-be righteous but sinners and all who hunger and thirst for the righteousness of divine perfection.

137:8.17 (1537.4) “John came preaching repentance to prepare you for the kingdom; now have I come proclaiming faith, the gift of God, as the price of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If you would but believe that my Father loves you with an infinite love, then you are in the kingdom of God.”

137:8.18 (1537.5) When he had thus spoken, he sat down. All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His disciples marveled. But the people were not prepared to receive the good news from the lips of this God-man. About one third who heard him believed the message even though they could not fully comprehend it; about one third prepared in their hearts to reject such a purely spiritual concept of the expected kingdom, while the remaining one third could not grasp his teaching, many truly believing that he “was beside himself.”

제 138 편 왕국 메신저들의 훈련

⇨ 137

유랜시아 책

13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8 편 왕국 메신저들의 훈련

섹션

소개

- 제 1 장. 최종적인 지시들
- 제 2 장. 여섯 명 선택
- 제 3 장.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 제 4 장.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 제 5 장.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 제 6 장. 집중적인 훈련의 주간
- 제 7 장. 또 한 번의 실망
- 제 8 장. 12 사도들의 첫 번째 활동
- 제 9 장. 5개월 동안의 시험
- 제 10 장. 12 사도들의 조직

소개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설교한 후, 예수는 그날 오후에 6명의 사도들을 모아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의 친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하였다. 그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이 예수의 가까운 연관-동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왕국의 사도 지도자의 무리단에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포함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가나에서의 사건 이후 그가 어머니에게 눈에 띄게 거리감을 둔 것과 아울러 야고보와 유다를 선택된 소수에서 제외시킨 일은 예수와 그의 가족 사이를 계속하여 더욱 멀어지게 하였던 큰 거리감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그가 대중 사명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그들은 거의 그를 배척했다—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서먹한 감정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도 충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굳건하지 못한 신앙과 희망, 그리고 실망, 창피함, 절망이 점차 증가되는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

PAPER 138

TRAINING THE KINGDOM'S
MESSENGERS

SECTIONS

Introduction

- 1. Final Instructions
- 2. Choosing the Six
- 3. The Call of Matthew and Simon
- 4. The Call of the Twins
- 5. The Call of Thomas and Judas
- 6. The Week of Intensive Training
- 7. Another Disappointment
- 8. First Work of the Twelve
- 9. Five Months of Testing
- 10. Organization of the Twelve

INTRODUCTION

138:0.1 (1538:1) AFTER preaching the sermon on “The Kingdom,” Jesus called the six apostles together that afternoon and began to disclose his plans for visiting the cities around and about the Sea of Galilee. His brothers James and Jude were very much hurt because they were not called to this conference. Up to this time they had regarded themselves as belonging to Jesus’ inner circle of associates. But Jesus planned to have no close relatives as members of this corps of apostolic directors of the kingdom. This failure to include James and Jude among the chosen few, together with his apparent aloofness from his mother ever since the experience at Cana, was the starting point of an ever-widening gulf between Jesus and his family. This situation continued throughout his public ministry — they very nearly rejected him — and these differences were not fully removed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His mother constantly wavered between attitudes

였다. 단지 막내인 롯만이 자신의 오빠이자 아버지격인 예수께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였다.

부활 이후까지도, 예수의 온 가족은 그의 사명활동에 거의 상관이 없었다. 선지자가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명예를 받는다면, 그는 자기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를 납득하는 깊은 감사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1 장. 최종적인 지시들

서기 26년 6월 23일 일요일인 다음 날, 예수는 6명의 사도들에게 최종적인 지도를 내리셨다. 그는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들이 세례 주는 것을 금하였으며 대중 연설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는 나중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대중에게 연설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실천적인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했다. 예수는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을 전적으로 하나의 개인적 활동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그의 발표가 사도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예수가 그런 식으로 왕국 선포를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였으므로,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한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게레사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빌립과 나다니엘은 타리케아로 보내셨다.

그들이 이 첫 두 주간의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는 그들에게 그가 떠난 후 왕국의 일을 계속할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투사된 사도 무리단의 회원을 위하여 그의 초기 개종자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하도록 그들 각자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요한이 물었다: “주(主)여, 그렇지만 저희들은 요단에서부터 주(主)와 계속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왕국을 위한 저희의 첫 번째 임무가 되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왔는데, 이 여섯 사람들도 저희와 한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요한아, 너희가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에게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후,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났다.

그들 각자가 새로운 사도를 한 명씩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의견들을 교환하기까지, 여섯 명의 사도들은 많은 일을 하러 흩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안드레의 조언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위하여 떠났다. 안드레가 말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主)의 말씀이 옳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선생들이 더 필요한데, 주(主)는 이들 6명의 사도들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현시해 오셨다.”

of fluctuating faith and hope, and increasing emotions of disappointment, humiliation, and despair. Only Ruth, the youngest, remained unwaveringly loyal to her father-brother.

138:0.2 (1538.2)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Jesus' entire family had very little to do with his ministry. If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save in his own country, he is not without understanding appreciation save in his own family.

1. FINAL INSTRUCTIONS

138:1.1 (1538.3) The next day, Sunday, June 23, A.D. 26, Jesus imparted his final instructions to the six. He directed them to go forth, two and two, to t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He forbade them to baptize and advised against public preaching. He went on to explain that later he would permit them to preach in public, but that for a season, and for many reasons, he desired them to acquire practical experience in dealing personally with their fellow men. Jesus purposed to make their first tour entirely one of *personal work*. Although this announcement was something of a disappointment to the apostles, still they saw, at least in part, Jesus' reason for thus beginning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and they started out in good heart and with confident enthusiasm. He sent them forth by twos, James and John going to Kheresa, Andrew and Peter to Capernaum, while Philip and Nathaniel went to Tarichea.

138:1.2 (1538.4) Before they began this first two weeks of service, Jesus announced to them that he desired to ordain twelve apostles to continue the work of the kingdom after his departure and authorized each of them to choose one man from among his early converts for membership in the projected corps of apostles. John spoke up, asking: “But, Master, will these six men come into our midst and share all things equally with us who have been with you since the Jordan and have heard all your teaching in preparation for this, our first labor for the kingdom?” And Jesus replied: “Yes, John, the men you choose shall become one with us, and you will teach them all that pertains to the kingdom, even as I have taught you.” After thus speaking, Jesus left them.

138:1.3 (1539.1) The six did not separate to go to their work until they had exchanged many words in discussion of Jesus' instruction that each of them should choose a new apostle. Andrew's counsel finally prevailed, and they went forth to their labors. In substance Andrew said: “The Master is right; we are too few to encompass this work. There is need for more teachers, and the Master has manifested great confidence in us inasmuch as he has intrusted us with the choosing of these six

그들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서로 헤어지던 이날 아침에, 각자의 가슴속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약간의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곧 예수를 보고 싶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들의 두려움과 공포심 이외에도,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가슴속에 그렸던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 여섯 명은 두 주간 동안 일을 한 후에, 회의를 하기 위하여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 동안 예수는 요셉과 시몬 그리고 근처에 사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하였다.

사도들이 이 임무를 위해 떠나가 있는 동안, 예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자신의 잠재적 힘을 사용하여 그를 석방시키고 싶은 큰 유혹이 일어났으나, 그는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한 번 더 체념하기로 하였다.

new apostles.” This morning, as they separated to go to their work, there was a bit of concealed depression in each heart.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miss Jesus, and besides their fear and timidity, this was not the way they had pictured the kingdom of heaven being inaugurated.

138:1.4 (1539.2)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six were to labor for two weeks, after which they were to return to the home of Zebedee for a conference. Meantime Jesus went over to Nazareth to visit with Joseph and Simon and other members of his family living in that vicinity. Jesus did everything humanly possible, consistent with his dedica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to retain the confidence and affection of his family. In this matter he did his full duty and more.

138:1.5 (1539.3) While the apostles were out on this mission, Jesus thought much about John, now in prison. It was a great temptation to use his potential powers to release him, but once more he resigned himself to “wait upon the Father's will.”

제 2 장. 여섯 명 선택

여섯 명의 이 첫 번째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국 종교란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히 개인적 체험의 문제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돌아왔다. 그들은 종교적인 위안과 영적 소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일에 평민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예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안드레가 책임을 맡아 한 사람씩 불러서, 자신들의 보고를 주(主)께 정식으로 드렸으며, 여섯 명의 새로운 사도들에 대한 추천도 제시하였다.

각자가 새로운 사도들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을 발표한 후에, 예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명에 대해 투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사도 여섯 명 모두는 더 오래된 여섯 명 모두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후에 예수는 이들 후보자들을 모두 함께 방문해서 그들에게 봉사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로 뽑힌 사도들은 다음과 같다:

1. 마태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으로서, 그의 사무실은 바타니아 경계에 가까운 도시의 동쪽에 있었다. 그는 안드레에 의해 선택되었다.

2. 도마 디디머스는 타리케아 지방의 어부로서, 한때는 가다라 지방에서 목수와 석공 일을 하였다. 그는 빌립에 의해 선택되었다.

3. 야고보 알페오는 게레사 지방의 어부이자

2. CHOOSING THE SIX

138:2.1 (1539.4) This first missionary tour of the six was eminently successful. They all discovered the great value of direct and personal contact with men. They returned to Jesus more fully realizing that, after all, religion is purely and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They began to sense how hungry were the common people to hear words of religious comfort and spiritual good cheer. When they assembled about Jesus, they all wanted to talk at once, but Andrew assumed charge, and as he called upon them one by one, they made their formal reports to the Master and presented their nominations for the six new apostles.

138:2.2 (1539.5) Jesus, after each man had presented his selection for the new apostleships, asked all the others to vote upon the nomination; thus all six of the new apostles were formally accepted by all of the older six. Then Jesus announced that they would all visit these candidates and give them the call to service.

138:2.3 (1539.6) The newly selected apostles were:

138:2.4 (1539.7) 1. *Matthew Levi*, the customs collector of Capernaum, who had his office just to the east of the city, near the borders of Batanea. He was selected by Andrew.

138:2.5 (1539.8) 2. *Thomas Didymus*, a fisherman of Tarichea and onetime carpenter and stone mason of Gadara. He was selected by Philip.

138:2.6 (1539.9) 3. *James Alpheus*, a fisherman and

농부였으며, 야고보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4. 유다 알페오는 야고보 알페오의 쌍둥이 형제로, 그 역시 어부였으며 요한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5. 시몬 젤로떼는 열심당의 고관이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도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 직위를 포기했다. 열심당에 적을 두기 전에는 상인이었다. 그는 베드로에 의해 선택되었다.

6. 가롯 유다는 그의 부모가 여리고의 부유한 유대인이었으며 외아들이었다. 그는 세례자 요한에게 동조하였으므로 사두개인인 그의 부모는 그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의 사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그의 회계 경력이 주된 원인이 되어, 나다니엘이 그를 자기 무리에 들어오도록 권유하였다. 유다는 12 명의 사도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 지방 사람이었다.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와 관련된 흥미 있고 유익한 체험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하는 세부적인 사실들을 들으면서 여섯 명의 사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었다. 그들은 더욱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조용하고 개인적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내어 보내신 주(主)의 지혜를 이제 알게 되었다.

제 3 장.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다음 날 예수와 여섯 명의 사도들은 세관 징수원인 마태를 부르러 갔다. 마태는 그의 장부를 정리해 놓고, 동생에게 그의 사무실의 관련사들을 넘길 준비를 한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세금을 걷는 사무실에 가까이 갔을 때, 안드레가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갔으며, 예수는 마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와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다.

마태는 자신이 마련한 그날 밤의 저녁 만찬에 관해서 예수께 설명하면서, 만약 예수가 만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최소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은 그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수가 찬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사도로 초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시몬도 그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태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끝낸 후, 그들 모두는 베드로와 함께 시몬을 부르러 갔으며, 이제 그의 조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던 그의 오래된 사업 장소에서 시몬을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를 시몬에게 모시고 가자, 주(主)는 그 열성 애국자를 환영하면서 다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만 하였다.

그들은 모두 마태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farmer of Kheresa, was selected by James Zebedee.

138:2.7 (1539.10) 4. *Judas Alpheus*, the twin brother of James Alpheus, also a fisherman, was selected by John Zebedee.

138:2.8 (1540.1) 5. *Simon Zelotes* was a high officer in the patriotic organization of the Zealots, a position which he gave up to join Jesus' apostles. Before joining the Zealots, Simon had been a merchant. He was selected by Peter.

138:2.9 (1540.2) 6. *Judas Iscariot* was an only son of wealthy Jewish parents living in Jericho. He had become attached to John the Baptist, and his Sadducee parents had disowned him. He was looking for employment in these regions when Jesus' apostles found him, and chiefly because of his experience with finances, Nathaniel invited him to join their ranks. Judas Iscariot was the only Judean among the twelve apostles.

138:2.10 (1540.3) Jesus spent a full day with the six, answering their questions and listening to the details of their reports, for they had many interesting and profitable experiences to relate. They now saw the wisdom of the Master's plan of sending them out to labor in a quiet and personal manner before the launching of their more pretentious public efforts.

3. THE CALL OF MATTHEW AND SIMON

138:3.1 (1540.4) The next day Jesus and the six went to call upon Matthew, the customs collector. Matthew was awaiting them, having balanced his books and made ready to turn the affairs of his office over to his brother. As they approached the toll house, Andrew stepped forward with Jesus, who, looking into Matthew's face, said, "Follow me." And he arose and went to his house with Jesus and the apostles.

138:3.2 (1540.5) Matthew told Jesus of the banquet he had arranged for that evening, at least that he wished to give such a dinner to his family and friends if Jesus would approve and consent to be the guest of honor. And Jesus nodded his consent. Peter then took Matthew aside and explained that he had invited one Simon to join the apostles and secured his consent that Simon be also bidden to this feast.

138:3.3 (1540.6) After a noontide luncheon at Matthew's house they all went with Peter to call upon Simon the Zealot, whom they found at his old place of business, which was now being conducted by his nephew. When Peter led Jesus up to Simon, the Master greeted the fiery patriot and only said, "Follow me."

138:3.4 (1540.7) They all returned to Matthew's home,

거기에서 저녁 식사 전까지 정치와 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위 가족은 오랫동안 상업과 세금징수의 일에 종사해왔으므로; 마태가 초대 한 손님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연회-만찬에 저명인사가 참석하게 되면,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회석상 주위를 서성거리며 식사에 참석한 귀빈을 관찰하거나 그의 대화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보기 드문 이러한 사교 모임에서 예수의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다.

만찬의 시간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식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쁨은 즐거운 기분이 절정에 달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한 시간을 갖는 것을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토록 가벼운 가슴으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즐기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늦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악의가 많은 바리새인 하나가 다음과 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예수의 행위에 대해 비난을 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그런 망탕한 자리에 참석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어떻게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이 비난의 말을 그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예수는 말씀들을 시작했다; “마태와 시몬을 우리 동료로 환영하여 맞이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너희가 편한 마음으로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더욱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 중의 많은 이가 다가오는 영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발견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늘의 왕국의 좋은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가슴속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짓밟힌 자들에게 기쁨을, 도덕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영적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의로운 성격과 고상한 정서를 지닌 사람이, 비종교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몬 켈로페가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원했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이 열심당의 운동과 혼동되는 것을 예수가 원치 않으리라는 것을 느낀 안드레가 어떤 공개적인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다.

예수와 사도들은 그 날 밤을 마태의 집에서

where they talked much about politics and religion until the hour of the evening meal. The Levi family had long been engaged in business and tax gathering; therefore many of the guests bidden to this banquet by Matthew would have been denominated “publicans and sinners” by the Pharisees.

138:3.5 (1540.8) In those days, when a reception-banquet of this sort was tendered a prominent individual, it was the custom for all interested persons to linger about the banquet room to observe the guests at meat and t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speeches of the men of honor. Accordingly, most of the Capernaum Pharisees were present on this occasion to observe Jesus' conduct at this unusual social gathering.

138:3.6 (1540.9) As the dinner progressed, the joy of the diners mounted to heights of good cheer, and everybody was having such a splendid time that the onlooking Pharisees began, in their hearts, to criticize Jesus for his participation in such a lighthearted and carefree affair. Later in the evening, when they were making speeches, one of the more malignant of the Pharisees went so far as to criticize Jesus' conduct to Peter, saying: “How dare you to teach that this man is righteous when he eats with publicans and sinners and thus lends his presence to such scenes of careless pleasure making.” Peter whispered this criticism to Jesus before he spoke the parting blessing upon those assembled. When Jesus began to speak, he said: “In coming here tonight to welcome Matthew and Simon to our fellowship, I am glad to witness your lightheartedness and social good cheer, but you should rejoice still more because many of you will find entrance into the coming kingdom of the spirit, wherein you shall more abundantly enjoy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o you who stand about criticizing me in your hearts because I have come here to make merry with these friends, let me say that I have come to proclaim joy to the socially downtrodden and spiritual liberty to the moral captives. Need I remind you that they who are whole need not a physician, but rather those who are sick? I have co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138:3.7 (1541.1) And truly this was a strange sight in all Jewry: to see a man of righteous character and noble sentiments mingling freely and joyously with the common people, even with an irreligious and pleasure-seeking throng of publicans and reputed sinners. Simon Zelotes desired to make a speech at this gathering in Matthew's house, but Andrew, knowing that Jesus did not want the coming kingdom to become confused with the Zealots' movement, prevailed upon him to refrain from making any public remarks.

138:3.8 (1541.2) Jesus and the apostles remained that

보냈으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은 예수와 선함과 친절함에 대한 것이었다.

night in Matthew's house, and as the people went to their homes, they spoke of but one thing: the goodness and friendliness of Jesus.

제 4 장.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다음 날 그들 9명은 다음 차례의 두 사도들,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가 추천한 알페오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고보와 유다를 정식으로 부르기 위하여 함께 배를 타고 게레사로 건너갔다. 어부인 이 쌍둥이 형제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게레사의 어부들에게 주(主)를 소개했고, 예수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였다.

그들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낸 그 날 오후에, 예수는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지시를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지었다: “모두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창조한 어떤 창조체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왕국은 모든 남녀들에게 열려있다.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굶주린 혼 앞에 마주서서 그 자비의 문을 닫아도 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다. 우리는 왕국에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죄인, 사두개인이나 세리,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속박된 자와 함께 빵을 떼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왕국의 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거나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열려져 있다.”

그날 밤 알페오의 집에서 있었던 간소한 저녁 식사 시간 중에, 쌍둥이 형제는 사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늦게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정결하지 못한 영들의 기원, 본성, 운명에 관하여 처음으로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가 한 말씀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었다. 예수를 사랑하고 탄복하는 일은 매우 쉬웠으나,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다.

하루 밤을 쉬 후, 이제 11명이 된 전 인원은 배를 타고 타리케아로 건너갔다.

제 5 장.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어부인 도마와, 방랑자 유다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타리케아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만났으며, 도마는 가까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였다. 이 때 빌립은 자기가 사도로 추천한 도마를 소개하였고, 나다니엘은 유대 지방 사람인 가롯 유다를 역시 정중하게 소개하였다. 예수는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도마야, 너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를 따르라.” 주(主)는 가롯 유다에

4. THE CALL OF THE TWINS

138:4.1 (1541.3) On the morrow all nine of them went by boat over to Kheresa to execute the formal calling of the next two apostles, James and Judas the twin sons of Alpheus, the nominees of James and John Zebedee. The fisherman twins were expecting Jesus and his apostles and were therefore awaiting them on the shore. James Zebedee presented the Master to the Kheresa fishermen, and Jesus, gazing on them, nodded and said, “Follow me.”

138:4.2 (1541.4) That afternoon, which they spent together, Jesus fully instructed them concerning attendance upon festive gatherings, concluding his remarks by saying: “All men are my brothers. My Father in heaven does not despise any creature of our making. The kingdom of heaven is open to all men and women. No man may close the door of mercy in the face of any hungry soul who may seek to gain an entrance thereto. We will sit at meat with all who desire to hear of the kingdom. As our Father in heaven looks down upon men, they are all alike. Refuse not therefore to break bread with Pharisee or sinner, Sadducee or publican, Roman or Jew, rich or poor, free or bond. The door of the kingdom is wide open for all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and to find God.”

138:4.3 (1541.5) That night at a simple supper at the Alpheus home, the twin brothers were received into the apostolic family. Later in the evening Jesus gave his apostles their first lesson dealing with the origin, nature, and destiny of unclean spirits,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import of what he told them. They found it very easy to love and admire Jesus but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many of his teachings.

138:4.4 (1542.1) After a night of rest the entire party, now numbering eleven, went by boat over to Tarichea.

5. THE CALL OF THOMAS AND JUDAS

138:5.1 (1542.2) Thomas the fisherman and Judas the wanderer met Jesus and the apostles at the fisher-boat landing at Tarichea, and Thomas led the party to his near-by home. Philip now presented Thomas as his nominee for apostleship and Nathaniel presented Judas Iscariot, the Judean, for similar honors. Jesus looked upon Thomas and said: “Thomas, you lack faith; nevertheless, I receive you. Follow me.” To Judas

게 말씀했다; “유다야, 우리는 모두 한 몸이며, 이제 너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니, 너는 항상 너의 갈릴리 형제들에게 충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따라라.”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났을 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본성과 활동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동안 12명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들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 사람은 한 면을 이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한 면을 이해하였지만, 그들 중에 그의 가르침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항상 예수의 새 복음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옛 형식에 맞추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을 찾는데 있어서 새로운 길을 설립하러 왔다는 그 관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로운 계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다음 날 예수는 그의 12 사도들을 그들끼리 남겨두시고; 그들이 서로 친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끼리 서로 의논하기를 원하였다. 주(主)는 저녁 식사시간에 돌아왔으며, 식사 후에 그는 세라핌천사의 사명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도들도 조금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낸 후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세베대와 살로메는 그들의 큰 집을 예수와 그의 12사도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아들인 다윗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예수는 선택된 메신저들과 함께 조용한 안식일을 이곳에서 보내셨으며; 그는 왕국의 선포를 위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나타내시고, 정부 당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말씀하였다: “만약 시민 통치자들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 임무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시저나 그의 하인들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한쪽으로 불러내어 왜 요한을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유다는 예수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다.

제 6 장. 집중적인 훈련의 주간

그 다음 주간 동안에는 집중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 6명의 새로 뽑힌 사도들은 각자 자기를 추천한 사도들의 책임 아래, 그들이 왕국의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매일 철저히 돌이켜 보도록 하였다. 먼저 된 사도들은 후배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들이 그때까지 예수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다. 밤이 되면 그들 모두는 예수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베대의 정원에 모였다.

이즈음에 예수는 휴식과 오락을 위하여 주중

Iscaiot the Master said: “Judas, we are all of one flesh, and as I receive you into our midst, I pray that you will always be loyal to your Galilean brethren. Follow me.”

138:5.2 (1542.3) When they had refreshed themselves, Jesus took the twelve apart for a season to pray with them and to instruct them in the nature and work of the Holy Spirit, but again did they largely fail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ose wonderful truths which he endeavored to teach them. One would grasp one point and one would comprehend another, but none of them could encompass the whole of his teaching. Always would they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fit Jesus' new gospel into their old forms of religious belief. They could not grasp the idea that Jesus had come to proclaim a new gospel of salvation and to establish a new way of finding God; they did not perceive that he was a new revelation of the Father in heaven.

138:5.3 (1542.4) The next day Jesus left his twelve apostles quite alone; he wanted them to become acquainted and desired that they be alone to talk over what he had taught them. The Master returned for the evening meal, and during the after-supper hours he talked to them about the ministry of seraphim, and some of the apostles comprehended his teaching. They rested for a night and the next day departed by boat for Capernaum.

138:5.4 (1542.5) Zebedee and Salome had gone to live with their son David so that their large home could be turned over to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Here Jesus spent a quiet Sabbath with his chosen messengers; he carefully outlined the plans for proclaiming the kingdom and fully explained the importance of avoiding any clash with the civil authorities, saying: “If the civil rulers are to be rebuked, leave that task to me. See that you make no denunciations of Caesar or his servants.” It was this same evening that Judas Iscaiot took Jesus aside to inquire why nothing was done to get John out of prison. And Judas was not wholly satisfied with Jesus' attitude.

6. THE WEEK OF INTENSIVE TRAINING

138:6.1 (1542.6) The next week was devoted to a program of intense training. Each day the six new apostles were put in the hands of their respective nominators for a thoroughgoing review of all they had learned and experienced in preparation for the work of the kingdom. The older apostles carefully reviewed, for the benefit of the younger six, Jesus' teachings up to that hour. Evenings they all assembled in Zebedee's garden to receive Jesus' instruction.

138:6.2 (1542.7) It was at this time that Jesus

의 하루를 휴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육신 속에 살아계시는 동안, 매주 하루 동안 이완-휴식의 이 계획을 꾸준히 지켰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수요일에는 결코 정규 활동들을 추진하지 않았다. 예수는 매주 이러한 휴일이 되면 대개 그들에게서 떠나가면서,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가서 하루를 즐기어라. 왕국의 힘든 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너희의 예전에 하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기분을 즐기도록 하여라.” 땅에서 사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자신은 이러한 하루의 휴식이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간인 그의 연관-동료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선생님—주(主)—이었으며;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의 학생들—제자들—이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사신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자신에 관한 가르침들 사이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왕국과 거기에 관련된 복음이 너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 관해서나 나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교하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말도록 유의하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대하여 내가 계시한 것을 묘사하여 보여주어라, 그러나 나의 믿음들과 가르침들에 관한 믿음과 가르침을 가지고 행하려고 전설을 창조하고 그리고 예배종파를 세우는 섹길로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왜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초기의 가르침들에 있어서, 예수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대한 그릇된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사도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는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수를 저지르는 믿음들을 바로잡았다.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세례 받으신 이후의 일생에는 단지 한가지의 목적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좀 더 잘 그리고 좀 더 진실 되게 계시하는 일이었다; 그는 하느님께로 가는 새롭고도 보다 나은 길, 신앙과 사랑의 길의 선구자였다. 사도들에게 한 그의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였는데: “가서 죄인들을 찾으라; 낙심한 자들을 찾으라;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예수는 주변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을 그러한 방법과 개인성들에 온통 만족하였다. 그는 거대한 극적인 전시효과를 대동하면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가장 조용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해나갈 것을 고집하였다; 힘을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몹시 애쓰셨다. 그는 이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그의 12사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조용하게 일을 할 계획을 세우셨다.

established the mid-week holiday for rest and recreation. And they pursued this plan of relaxation for one day each week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material life. As a general rule, they never prosecuted their regular activities on Wednesday. On this weekly holiday Jesus would usually take himself away from them, saying: “My children, go for a day of play. Rest yourselves from the arduous labors of the kingdom and enjoy the refreshment that comes from reverting to your former vocations or from discovering new sorts of recreational activity.” While Jesus, at this period of his earth life, did not actually require this day of rest, he conformed to this plan because he knew it was best for his human associates. Jesus was the teacher — the Master; his associates were his pupils — disciples.

138:6.3 (1543.1) Jesus endeavored to make clear to his apostles the difference between his teachings and his *life among them* and the teachings which might subsequently spring up *about* him. Said Jesus: “My kingdom and the gospel related thereto shall be the burden of your message. Be not sidetracked into preaching about me and about my teachings.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portray my revelation of the Father in heaven but do not be misled into the bypaths of creating legends and building up a cult having to do with beliefs and teachings about my beliefs and teachings.” But again they did not understand why he thus spoke, and no man dared to ask why he so taught them.

138:6.4 (1543.2) In these early teachings Jesus sought to avoid controversies with his apostles as far as possible excepting those involving wrong concepts of his Father in heaven. In all such matters he never hesitated to correct erroneous beliefs. There was just *one* motive in Jesus' postbaptismal life on Urantia, and that was a better and truer revelation of his Paradise Father; he was the pioneer of the new and better way to God, the way of faith and love. Ever his exhortation to the apostles was: “Go seek for the sinners; find the downhearted and comfort the anxious.”

138:6.5 (1543.3) Jesus had a perfect grasp of the situation; he possessed unlimited power, which might have been utilized in the furtherance of his mission, but he was wholly content with means and personalities which most people would have regarded as inadequate and would have looked upon as insignificant. He was engaged in a mission of enormous dramatic possibilities, but he insisted on going about his Father's business in the most quiet and undramatic manner; he studiously avoided all display of power. And he now planned to work quietly, at least for several months, with his twelve apostles around about the

Sea of Galilee.

제 7 장. 또 한 번의 실망

7. ANOTHER DISAPPOINTMENT

예수는 다섯 달 동안 개인적 일을 통하여 조용히 전도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였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일을 하였다. 그 주간의 첫 날 이른 아침에, 그가 12사도들에게 이 계획을 발표하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 가롯 유다가 예수께 와서 사적인 면담을 청했다.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베드로가 대담하게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다른 연관-동료들을 대신하여 이제 왕국으로 들어갈 시기가 무르익은 것인지 아닌지를 여쭙어 보려 왔습니다. 그리고 주(主)는 왕국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그리고 왕국의 설립에 있어서 당신과 함께 저희 각자가 맡게 될 직위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계속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는 손을 들어 표시하면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려고 근처에서 있는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권좌에 앉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차지할 각자의 직위를 묻는단 말이나?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곧, 아주 가까운 날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왕국을 선포하는 일에서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성한 탁월함으로 다가오는 이 왕국의 본성과 의미심장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친구들아, 다시 한 번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왕국이 힘으로 통치되거나 영광으로 지배된다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지워 버려라. 진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곧 내 손에 주어 지겠지만, 이 신성한 자질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른 시대가 되면 너희는 진실로 권세와 영광 속에서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한 복종으로써 이 땅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매우 놀랐다. 예수는 그들을 돌씩 짚을 지워 기도하러 보내시면서 점심시간까지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중대한 시간이었던 이날 오전에 그들은 각자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애썼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예수가 명한대로 그에게 돌아왔다.

예수는 이제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나타남, 요단강에서의 세례,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 최근

138:7.1 (1543.4) Jesus had planned for a quiet missionary campaign of five months' personal work. He did not tell the apostles how long this was to last; they worked from week to week. And early on this first day of the week, just as he was about to announce this to his twelve apostles, Simon Peter, James Zebedee, and Judas Iscariot came to have private converse with him. Taking Jesus aside, Peter made bold to say: "Master, we come at the behest of our associates to inquire whether the time is not now ripe to enter into the kingdom. And will you proclaim the kingdom at Capernaum, or are we to move on to Jerusalem? And when shall we learn, each of us, the positions we are to occupy with you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 " and Peter would have gone on asking further questions, but Jesus raised an admonitory hand and stopped him. And beckoning the other apostles standing near by to join them, Jesus said: "My little children,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Have I not made it plain to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 have told you many times that I have not come to sit on David's throne, and now how is it that you are inquiring which place each of you will occupy in the Father's kingdom? Can you not perceive that I have called you as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Do you not understand that soon, very soon, you are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and 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even as I now represent my Father who is in heaven? Can it be that I have chosen you and instructed you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and yet you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is coming kingdom of divine pre-eminence in the hearts of men? My friends, hear me once more. Banish from your minds this idea that my kingdom is a rule of power or a reign of glory. Indeed,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will presently be given into my hands, but it is not the Father's will that we use this divine endowment to glorify ourselves during this age. In another age you shall indeed sit with me in power and glory, but it behooves us now to submit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go forth in humble obedience to execute his bidding on earth."

138:7.2 (1544.1) Once more were his associates shocked, stunned. Jesus sent them away two and two to pray, asking them to return to him at noontime. On this crucial forenoon they each sought to find God, and each endeavored to cheer and strengthen the other, and they returned to Jesus as he had bidden them.

138:7.3 (1544.2) Jesus now recounted for them the coming of John, the baptism in the Jordan, the

에 여섯 사도를 뽑은 일, 그리고 자신의 친형제들을 그들로부터 제외시킨 점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면서, 왕국의 적들이 그들 역시 떼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짧았지만 진지한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모두 일어나서 베드로를 선두로 하여 그들의 주(主)에 대한 자신들의 변치 않는 헌신을 선언했으며, 도마가 이것을 “다가오는 그 왕국이 무엇이든간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라고 표현하면서, 왕국에 대한 그들의 확고부동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때 예수는 그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 가족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두 주간을 겨우 지탱할 만큼의 기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말씀하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바닷가에서 두 주간을 머물면서, 고기를 낚거나 혹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 동안에 너희는 첫 번째로 선택된 사도인 안드레의 지도 아래, 너희가 앞으로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현재의 개인적 사명활동과 또한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너희를 임명할 때를 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자체 내에 조직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는 사기가 충천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대중 사명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첫 암시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었다.

사도들은 그날 남은 시간들을 자신들의 조직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소용되는 배들과 그물들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했다; 그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예수 자신도 노련한 사공이며 어부였다. 그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던 배들 대부분은 예수가 손수 만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두 주일간 고기를 잡는 일을 허락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 “다음에는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고기를 잡았고, 예수는 매일 밤 각각 다른 집단과 함께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는 훌륭한 어부였고, 명랑한 동행자였고, 영감을 주는 친구였으며; 그들이 그와 함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를 더욱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태가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더 깊게 알아 갈수록, 그들을 더 적게 탄복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다.

2 주 동안 고기를 잡고 2 주 동안 왕국을 위한 개인적 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이 계획은 다섯 달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서기 26년의

marriage feast at Cana, the recent choosing of the six, and the withdrawal from them of his own brothers in the flesh, and warned them that the enemy of the kingdom would seek also to draw them away. After this short but earnest talk the apostles all arose, under Peter's leadership, to declare their undying devotion to their Master and to pledge their unswerving loyalty to the kingdom, as Thomas expressed it, “To this coming kingdom, no matter what it is and even if I do not fully understand it.” They all truly *believed in Jesus*, even though they did not fully comprehend his teaching.

138:7.4 (1544.3) Jesus now asked them how much money they had among them; he also inquired as to what provision had been made for their families. When it developed that they had hardly sufficient funds to maintain themselves for two weeks, he said: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that we begin our work in this way. We will remain here by the sea two weeks and fish or do whatever our hands find to do; and in the meantime, under the guidance of Andrew, the first chosen apostle, you shall so organize yourselves as to provide for everything needful in your future work, both for the present personal ministry and also when I shall subsequently ordain you to preach the gospel and instruct believers.” They were all greatly cheered by these words; this was their first clear-cut and positive intimation that Jesus designed later on to enter upon more aggressive and pretentious public efforts.

138:7.5 (1544.4) The apostles spent the remainder of the day perfecting their organization and completing arrangements for boats and nets for embarking on the morrow's fishing as they had all decided to devote themselves to fishing; most of them had been fishermen, even Jesus was an experienced boatman and fisherman. Many of the boats which they used the next few years had been built by Jesus' own hands. And they were good and trustworthy boats.

138:7.6 (1544.5) Jesus enjoined them to devote themselves to fishing for two weeks, adding, “And then will you go forth to become fishers of men.” They fished in three groups, Jesus going out with a different group each night. And they all so much enjoyed Jesus! He was a good fisherman, a cheerful companion, and an inspiring friend; the more they worked with him, the more they loved him. Said Matthew one day: “The more you understand some people, the less you admire them, but of this man, even the less I comprehend him, the more I love him.”

138:7.7 (1545.1) This plan of fishing two weeks and going out to do personal work in behalf of the kingdom for two weeks was followed for more than

그 해 말, 요한의 감금에 뒤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을 반대하여 지도가 내려졌던 특별 박해(迫害)들이 해제되기까지 계속되었다.

five months, even to the end of this year of A.D. 26, until after the cessation of those special persecutions which had been directed against John's disciples subsequent to his imprisonment.

제 8 장. 12 사도들의 첫 번째 활동

두 주간의 고기잡이를 끝낸 후, 12 사도들의 회계로 뽑힌 가롯 유다는 부양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여섯으로 똑같이 나누었으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서기 26년 8월 중순 무렵에 그들은 돌씩 짝을 지어 안드레가 각자에게 할당한 일터로 나갔다. 예수는 첫 두 주일 동안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두 번째 두 주일 동안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들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두 사람씩 함께 나가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중 사명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그들 각각의 짝들과 함께 나가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참회나 희생물 없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점을 설교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토의하는 것을 금하였다:

1.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그의 구속에 관하여.

2. 세례 받으시던 날에 들었던 음성에 관하여. 예수는 “음성을 들었던 자만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라. 나에게 들었던 것들만 말하고; 풍문에 떠도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3.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에 관하여.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물과 포도주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들은 두 주간 동안 어부로서 일을 하고 그리하여 그 다음 두 주간 동안 왕국의 사명활동 일을 하기 위하여 들에 있는 동안 자신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벌었던, 두 주간씩 번갈아가면서 일한 이 5-6 개월의 기간 내내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명활동에 경탄하였다. 무식한 자는 신앙심이 깊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그런데 예수의 사도들은 신앙심이 깊고 또한 의로웠으나; 랍비들의 지식 대부분과 세상의 지혜에는 기꺼이 무시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소위 말하는 착한 일에서의 회개와 왕국에 입장하는 값으로 요구되는 신앙에 의한 마음의 변화—새로 태어남—사이의 차이점을 자기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신앙만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하여 다가오

8. FIRST WORK OF THE TWELVE

138:8.1 (1545.2) After disposing of the fish catches of two weeks, Judas Iscariot, the one chosen to act as treasurer of the twelve, divided the apostolic funds into six equal portions, funds for the care of dependent families having been already provided. And then near the middle of August, in the year A.D. 26, they went forth two and two to the fields of work assigned by Andrew. The first two weeks Jesus went out with Andrew and Peter, the second two weeks with James and John, and so on with the other couples in the order of their choosing. In this way he was able to go out at least once with each couple before he called them together for the beginning of their public ministry.

138:8.2 (1545.3) Jesus taught them to preach the forgiveness of sin through *faith in God* without penance or sacrifice, and that the Father in heaven loves all his children with the same eternal love. He enjoined his apostles to refrain from discussing:

138:8.3 (1545.4) 1. The work and imprisonment of John the Baptist.

138:8.4 (1545.5) 2. The voice at the baptism. Said Jesus: “Only those who heard the voice may refer to it. Speak only that which you have heard from me; speak not hearsay.”

138:8.5 (1545.6) 3.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at Cana. Jesus seriously charged them, saying, “Tell no man about the water and the wine.”

138:8.6 (1545.7) They had wonderful times throughout these five or six months during which they worked as fishermen every alternate two weeks, thereby earning enough money to support themselves in the field for each succeeding two weeks of missionary work for the kingdom.

138:8.7 (1545.8) The common people marveled at the teaching and ministry of Jesus and his apostles. The rabbis had long taught the Jews that the ignorant could not be pious or righteous. But Jesus' apostles were both pious and righteous; yet they were cheerfully ignorant of much of the learning of the rabbis and the wisdom of the world.

138:8.8 (1545.9) Jesus made plain to his apost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pentance of so-called good works as taught by the Jews and the change of mind by faith — the new birth — which he required as the price of admission to the kingdom. He taught his apostles that *faith* was the only requisite to entering the Father's kingdom. John

는 진노로부터 피하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는 “신앙이 하느님의 계시되어 있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려있는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처럼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의 말처럼 하였다. 예수는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영과 구원의 은총을 만족하고 확신하는 실제적이며 개인적 체험을 찾는 것으로 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전환시키려고 애쓰셨다.

제자들은 주(主)께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심오한 존중과 동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으며, 온갖 종류의 남녀와 아이들에게 쏟는 이러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예수의 배려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심오한 강연 중에도, 육체와 혼의 짐을 진 지나가는 여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토론을 중단하고 그 여인에게로 나가곤 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드는 아이와 형제우애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사도들과의 진지한 회의도 중단하시곤 했다. 예수께서는 당장 눈앞에 현존하는 개별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하였다. 그는 주인이며 선생님이었지만, 그 이상이 었다.—그는 또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으며, 이해심 많은 동무였다.

예수의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 주로 비유와 짧은 강연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그는 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셨다. 그는 후반기의 대중 강연 동안에도 진지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멈추셨을 것이다.

사도들은 여인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으나, 그들도 곧 익숙해졌으며; 그는 왕국에서는 여인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제 9 장. 5개월 동안의 시험

고기잡이와 개인적 사명을 번갈아 하던 이러한 단조로운 기간이 12사도들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체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시험을 견디어 냈다. 그들은 불평과 의심 그리고 과도기적인 불만감들을 간직한 채, 여전히 주(主)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의 맹세를 지켰다. 이러한 시험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낸 그들의 개인적 관계는 그들 모두(가롯 유다를 제외한)로 하여금 재판과 십자가형의 암울한 기간들 중에서도 예수께 충성하고 진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실제 사람들은 예수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의 존경하는 선생님을 실제로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主)가 죽음을 맞는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이 사도들의 가슴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특별한 인간 감정—우정과 충성에서의 최극의 정서(感想)—를 좇아서, 모든 이성과 판단과 논리는 한편으로 밀려 나갔다.

had taught them “repentance —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Jesus taught, “Faith is the open door for entering into the present, perfect, and eternal love of God.” Jesus did not speak like a prophet, one who comes to declare the word of God. He seemed to speak of himself as one having authority. Jesus sought to divert their minds from miracle seeking to the finding of a real and personal experience in the satisfaction and assurance of the indwelling of God’s spirit of love and saving grace.

138:8.9 (1545.10) The disciples early learned that the Master had a profound respect and sympathetic regard for every human being he met, and they were tremendously impressed by this uniform and unvarying consideration which he so consistently gave to all sorts of men, women, and children. He would pause in the midst of a profound discourse that he might go out in the road to speak good cheer to a passing woman laden with her burden of body and soul. He would interrupt a serious conference with his apostles to fraternize with an intruding child. Nothing ever seemed so important to Jesus as the *individual human* who chanced to be in his immediate presence. He was master and teacher, but he was more — he was also a friend and neighbor, an understanding comrade.

138:8.10 (1546.1) Though Jesus’ public teaching mainly consisted in parables and short discourses, he invariably taught his apostles by questions and answers. He would always pause to answer sincere questions during his later public discourses.

138:8.11 (1546.2) The apostles were at first shocked by, but early became accustomed to, Jesus’ treatment of women; he made it very clear to them that women were to be accorded equal rights with men in the kingdom.

9. FIVE MONTHS OF TESTING

138:9.1 (1546.3) This somewhat monotonous period of alternate fishing and personal work proved to be a grueling experience for the twelve apostles, but they endured the test. With all of their grumbings, doubts, and transient dissatisfactions they remained true to their vows of devotion and loyalty to the Master. It was their personal association with Jesus during these months of testing that so endeared him to them that they all (save Judas Iscariot) remained loyal and true to him even in the dark hour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Real men simply could not actually desert a revered teacher who had lived so close to them and had been so devoted to them as had Jesus. Through the dark hours of the Master’s death, in the hearts of these apostles all reason, judgment, and logic were set aside in deference to just one extraordinary human

예수와 함께 했던 이 다섯 달의 기간은 사도들 각 자에게, 예수를 온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각오와 부활이 있는 후까지 그들을 함께 붙들어 준 것은, 예수의 훌륭한 가르침들이나 굉장한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 정서이었다.

조용히 일한 이들 몇 개월은 사도들에게 큰 시험, 그들이 생존한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 활동이 없던 이 시기는 예수의 가족들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예수가 그의 대중을 위한 일에 개시해 나갈 준비가 되었 때가 되어서는, 그의 전 가족(루트를 제외한)은 실천적으로 예수를 저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단지 몇 번만 그와 접촉을 취했고, 그리고 그것도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려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거의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의 철학을 간단하게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형제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

사도들은 가버나움, 벳세다-줄리아스, 코라진, 게라사, 히포, 막달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헬, 요타파타, 라마, 사벳, 기살라, 가다라, 그리고 아빌라에서 그들의 개인적 일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성읍들 이외에도 시골에서 그리고 많은 마을들에서 일하였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12명의 사도들은 그들 각자의 가족을 충분한 부양을 계획할 만큼 일을 했었다. 사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고, 몇몇 사람은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들의 기금으로부터 적은 도움과 함께, 식구 부양의 대책을 잘 마련해 놓았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주(主)의 일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다.

emotion — the supreme sentiment of friendship-loyalty. These five months of work with Jesus led these apostles, each one of them, to regard him as the best *friend* he had in all the world. And it was this human sentiment, and not his superb teachings or marvelous doings, that held them together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and the renewal of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38:9.2 (1546.4) Not only were these months of quiet work a great test to the apostles, a test which they survived, but this season of public inactivity was a great trial to Jesus' family. By the time Jesus was prepared to launch forth on his public work, his entire family (except Ruth) had practically deserted him. On only a few occasions did they attempt to make subsequent contact with him, and then it was to persuade him to return home with them, for they came near to believing that he was beside himself. They simply could not fathom his philosophy nor grasp his teaching; it was all too much for those of his own flesh and blood.

138:9.3 (1546.5) The apostles carried on their personal work in Capernaum, Bethsaida-Julias, Chorazin, Gerasa, Hippos, Magdala, Cana, Bethlehem of Galilee, Jotapata, Ramah, Safed, Gischala, Gadara, and Abila. Besides these towns they labored in many villages as well as in the countryside. By the end of this period the twelve had worked out fairly satisfactory plans for the care of their respective families. Most of the apostles were married, some had several children, but they had made such arrangements for the support of their home folks that, with some little assistance from the apostolic funds, they could devote their entire energies to the Master's work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the financial welfare of their families.

제 10 장. 12 사도들의 조직

사도들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조직을 갖추었다:

1. 제일 먼저 선택된 안드레가 12명의 의장이며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2.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개인적 동행자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의 시중을 들었고, 그의 육신적인 것 또는 기타 잡다한 필요 사항을 알아보았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와 기도로 그가 밤을 새우실 때, 그와 함께 있게 되었다.

3. 빌립은 전체 모임의 사무장이 되었다. 음식을 제공하고 방문객이나 또는 가끔은 많은 집단의 청중들의 음식까지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10. ORGANIZATION OF THE TWELVE

138:10.1 (1547.1) The apostles early organized themselves in the following manner:

138:10.2 (1547.2) 1. Andrew, the first chosen apostle, was designated chairman and director general of the twelve.

138:10.3 (1547.3) 2. Peter, James, and John were appointed personal companions of Jesus. They were to attend him day and night, to minister to his physical and sundry needs, and to accompany him on those night vigils of prayer and mysterious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138:10.4 (1547.4) 3. Philip was made steward of the group. It was his duty to provide food and to see that visitors, and even the multitude of listeners at times, had something to eat.

4. 나다니엘은 12명의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졌다. 그는 정기적으로 각 사도의 가족들의 필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청구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주 기금을 보냈다.

5. 마태는 사도 집단의 재정을 맡아보았다.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만약 공동 부양을 위한 기금이 더 들어오지 않거나, 그 집단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기부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기잡이를 위하여 12 사도들을 얼마동안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마태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대중을 위한 일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회계에게 항상 맡겨둘 수 있었다.

6. 도마는 일정을 맡아보는 책임자였다. 그는 숙소를 정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장소들을 대개 물색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행 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알페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군중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의 임무는 설교하는 동안에 군중들 가운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보좌관 안내원들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8. 시몬 젤로페는 레크리에이션과 놀이를 담당했다. 그는 수요일 행사일정을 관리했고 또한 날마다 몇 시간 동안 이완-휴식과 기분전환을 제공하려고 애썼다.

[138:10.10] 9. 가롯 유다는 회계로 지명되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보관하였다. 그는 모든 경비에 드는 돈을 지불했고 장부를 관리했다. 그는 일주일 단위로 마태에게 예산안을 짜서 주었고, 안드레에게 일주일마다 보고했다. 유다는 안드레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서 돈을 지출하였다.

[138:10.11] 12명의 사도들은 배반자인 유다의 저버림으로 인하여 필요가 생겨 재(再)조직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초기 조직에 의해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예수가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 놓고 정식으로 그들을 왕국의 대사들과 왕국의 복음의 설교자들로 임명하기 전까지, 주(主)와 그의 제자-사도들은 이러한 간단한 방식에 의거하여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들은 그 후 곧, 첫 번째 대중 선교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138:10.5 (1547.5) 4. Nathaniel watched over the needs of the families of the twelve. He received regular reports as to the requirements of each apostle's family and, making requisition on Judas, the treasurer, would send funds each week to those in need.

138:10.6 (1547.6) 5. Matthew was the fiscal agent of the apostolic corps. It was his duty to see that the budget was balanced, the treasury replenished. If the funds for mutual support were not forthcoming, if donations sufficient to maintain the party were not received, Matthew was empowered to order the twelve back to their nets for a season. But this was never necessary after they began their public work; he always had sufficient funds in the treasurer's hands to finance their activities.

138:10.7 (1547.7) 6. Thomas was manager of the itinerary. It devolved upon him to arrange lodgings and in a general way select places for teaching and preaching, thereby insuring a smooth and expeditious travel schedule.

138:10.8 (1547.8) 7. James and Judas the twin sons of Alpheus were assigned to the management of the multitudes. It was their task to deputize a sufficient number of assistant ushers to enable them to maintain order among the crowds during the preaching.

138:10.9 (1547.9) 8. Simon Zelotes was given charge of recreation and play. He managed the Wednesday programs and also sought to provide for a few hours of relaxation and diversion each day.

138:10.10 (1547.10) 9. Judas Iscariot was appointed treasurer. He carried the bag. He paid all expenses and kept the books. He made budget estimates for Matthew from week to week and also made weekly reports to Andrew. Judas paid out funds on Andrew's authorization.

138:10.11 (1547.11) In this way the twelve functioned from their early organization up to the time of the reorganization made necessary by the desertion of Judas, the betrayer. The Master and his disciple-apostles went on in this simple manner until Sunday, January 12, A.D. 27, when he called them together and formally ordained them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preachers of its glad tidings. And soon thereafter they prepared to start for Jerusalem and Judea on their first public preaching tour.

제 139 편 열 두 사도

⇨ 138

유랜시아 책

14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39 편 열 두 사도

색션

소개

- 제 1 장. 첫 번째로 선택된 안드레
제 2 장. 시몬 베드로
제 3 장. 야고보 세베대
제 4 장. 요한 세베대
제 5 장. 호기심 많은 빌립
제 6 장. 정직한 나다니엘
제 7 장. 마태 레위
제 8 장. 도마 디디머스
제 9-10 장.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제 11 장. 열심당원 시몬
제 12 장. 가롯 유다

PAPER 139

THE TWELVE APOSTLES

SECTIONS

Introduction

1. Andrew, the First Chosen
2. Simon Peter
3. James Zebedee
4. John Zebedee
5. Philip the Curious
6. Honest Nathaniel
7. Matthew Levi
8. Thomas Didymus
9 and 10. James and Judas Alpheus
11. Simon the Zealot
12. Judas Iscariot

소개

그가 반복하여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이 깨트리고 그들의 개인적 환희에 대한 모든 야망을 갈갈히 찢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사람만이 그를 저버렸다는 사실은, 예수의 지상(地上) 일생의 매력과 정의로움을 매우 잘 증거 한다.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웠으며, 예수는 그들로부터 사람들의 왕국, 유랜시아에 살고 있던 인간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다른 세계들에 살고 있던 인간들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다양한 인간 성격들을 대표하고 있었고,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대부분에게는, 100년 전에 강제적으로 갈릴리인이 된 이방 사람들로 인한 이방인의 피가 상당히 섞여있었다.

사도들 모두가 무식하고 교육받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알패오의 쌍둥이를

INTRODUCTION

139:0.1 (1548.1) IT IS an eloquent testimony to the charm and righteousness of Jesus' earth life that, although he repeatedly dashed to pieces the hopes of his apostles and tore to shreds their every ambition for personal exaltation, only one deserted him.

139:0.2 (1548.2) The apostles learned from Jesu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and Jesus learned much from them about the kingdom of men, human nature as it lives on Urantia and on the other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se twelve men represented many different types of human temperament, and they had not been made *alike* by schooling. Many of these Galilean fishermen carried heavy strains of gentile blood as a result of the forcible conversion of the gentile population of Galilee one hundred years previously.

139:0.3 (1548.3) Do not make the mistake of regarding the apostles as being altogether ignorant and

제외한 그들 모두는 회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어서, 히브리 성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지식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았었다. 7명이 가버나움 회당 학교 출신이었으며, 갈릴리 전체에서 그보다 더 좋은 유대인 학교는 없었다.

너희들에게 있는 기록들이 이 왕국 메신저들을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자”로 칭하는 것은, 그들이 랍비들의 학문에 대하여 무지하고 랍비가 사용하는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은 문외한들이었다는 관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이 결여되어 있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확실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경직되고 편견에 치우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른이 된 이후로는, 그들 각자는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였다.

제 1 장. 첫 번째로 선택된 안드레

왕국의 사도 무리단의 대장인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다. 그는 5명의 아이들—본인, 남동생 시몬, 그리고 3명의 여자 동생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다.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어항(漁港)인 벳세다에서 고기를 말려서 파는 일에 종사하는 세베대의 동업자였다. 안드레는 사도가 되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결혼한 동생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들은 둘 모두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동반자들이었다.

그가 사도로 뽑힌 해인 서기 26년에, 안드레는 예수보다 한 살 많은 33세였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훌륭한 선조들을 둔 혈통에서 태어났고,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다. 웅변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연관-동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다. 예수는 안드레에게는 애칭(愛稱), 형제우애에서의 호칭을 지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곧 예수를 주(主)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듯이, 그들은 또한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용어로 안드레를 호칭하였다.

안드레는 훌륭한 조직가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훌륭한 행정-관리자였다. 그는 네 사도들로 구성된 핵심적인 요원들 중의 하나였지만, 예수가 그를 사도들 대원의 우두머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다른 세 사람들이 주(主)와 매우 가까이 교제를 누리는 동안,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남아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안드레는 사도 대원들의 책임자로 남아 있었다.

안드레는 결코 유능한 설교자가 되지 못하였지만, 개인적 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일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왕국의 선구자적인 선교사 역할을 하였고, 첫 번째로 뽑힌 사도로서 즉시 자기

unlearned. All of them, except the Alpheus twins, were graduates of the synagogue schools, having been thoroughly trained in the Hebrew scriptures and in much of the current knowledge of that day. Seven were graduates of the Capernaum synagogue schools, and there were no better Jewish schools in all Galilee.

139:0.4 (1548.4) When your records refer to these messengers of the kingdom as being “ignorant and unlearned,” it was intended to convey the idea that they were laymen, unlearned in the lore of the rabbis and untrained in the methods of rabbinical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They were lacking in so-called higher education. In modern times they would certainly be considered uneducated, and in some circles of society even uncultured. One thing is certain: They had not all been put through the same rigid and stereotyped educational curriculum. From adolescence on they had enjoyed separate experiences of learning how to live.

1. ANDREW, THE FIRST CHOSEN

139:1.1 (1548.5) Andrew, chairman of the apostolic corps of the kingdom, was born in Capernaum. He was the oldest child in a family of five — himself, his brother Simon, and three sisters. His father, now dead, had been a partner of Zebedee in the fish-drying business at Bethsaida, the fishing harbor of Capernaum. When he became an apostle, Andrew was unmarried but made his home with his married brother, Simon Peter. Both were fishermen and partners of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139:1.2 (1548.6) In A.D. 26, the year he was chosen as an apostle, Andrew was 33, a full year older than Jesus and the oldest of the apostles. He sprang from an excellent line of ancestors and was the ablest man of the twelve. Excepting oratory, he was the peer of his associates in almost every imaginable ability. Jesus never gave Andrew a nickname, a fraternal designation. But even as the apostles soon began to call Jesus Master, so they also designated Andrew by a term the equivalent of Chief.

139:1.3 (1549.1) Andrew was a good organizer but a better administrator. He was one of the inner circle of four apostles, but his appointment by Jesus as the head of the apostolic group made it necessary for him to remain on duty with his brethren while the other three enjoyed very close communion with the Master. To the very end Andrew remained dean of the apostolic corps.

139:1.4 (1549.2) Although Andrew was never an effective preacher, he was an efficient personal worker, being the pioneer missionary of the kingdom in that, as the first chosen apostle, he

동생 시몬을 예수께로 데려왔으며, 그 시몬은 나중에 왕국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안드레는, 12사도를 왕국의 메신저들로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개인적 사명활동의 과정을 활용하는 예수의 방침을 가장 잘 협조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사도들을 사적(私的)으로 가르치셨을 때나 아니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였을 때나, 안드레는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납득하는 집행자였고 능률적인 행정-관리자였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바로 예수께로 가져갔고, 그렇지 않은 한은 그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에서나 기질에서나 매우 달랐지만,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영속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웅변술을 질투하지 않았다. 나이가 더 많은 안드레 같은 형(型)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제수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힘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의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의 혼들이 왕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가져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이 나를 주(主)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히 나를 주(主) 옆에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형제지간이라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안드레와 베드로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되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유명해졌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으로 불리면서 나머지 일생을 지내는 것이 안드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안드레가 사람들을 가장 잘 판단하였다. 그들의 회계가 무엇인가 그릇 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때에도, 안드레는 가룟 유다의 가슴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자기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왕국에 대한 안드레의 위대한 봉사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 내보낼 첫 번째 선교사들을 선정하는데 관해서 조언을 해준 것과, 그리고 또한 왕국의 행정-관리적인 관련자들에서의 조직에 대하여 이들 초기 영도자들에게 조언을 준 것이었다. 안드레는 젊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자원과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는데 남다른 선물을 갖고 있었다.

예수의 상승 이후 곧바로, 안드레는 떠나가신 주(主)의 많은 말씀들과 행적들에 대하여 개인적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죽은 후에는 이 사적(私的)인 기록에 대한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

immediately brought to Jesus his brother, Simon, who subsequently became one of the greatest preachers of the kingdom. Andrew was the chief supporter of Jesus' policy of utilizing the program of personal work as a means of training the twelve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139:1.5 (1549.3) Whether Jesus privately taught the apostles or preached to the multitude, Andrew was usually conversant with what was going on; he was an understanding executive and an efficient administrator. He rendered a prompt decision on every matter brought to his notice unless he deemed the problem one beyond the domain of his authority, in which event he would take it straight to Jesus.

139:1.6 (1549.4) Andrew and Peter were very unlike in character and temperament, but it must be recorded everlastingly to their credit that they got along together splendidly. Andrew was never jealous of Peter's oratorical ability. Not often will an older man of Andrew's type be observed exerting such a profound influence over a younger and talented brother. Andrew and Peter never seemed to be in the least jealous of each other's abilities or achievements. Late on the evening of the day of Pentecost, when, largely through the energetic and inspiring preaching of Peter, two thousand souls were added to the kingdom, Andrew said to his brother: "I could not do that, but I am glad I have a brother who could." To which Peter replied: "And but for your bringing me to the Master and by your steadfastness *keeping* me with him, I should not have been here to do this." Andrew and Peter were the exceptions to the rule, proving that even brothers can live together peaceably and work together effectively.

139:1.7 (1549.5) After Pentecost Peter was famous, but it never irritated the older Andrew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being introduced as "Simon Peter's brother."

139:1.8 (1549.6) Of all the apostles, Andrew was the best judge of men. He knew that trouble was brewing in the heart of Judas Iscariot even when none of the others suspected that anything was wrong with their treasurer; but he told none of them his fears. Andrew's great service to the kingdom was in advising Peter, James, and John concerning the choice of the first missionaries who were sent out to proclaim the gospel, and also in counseling these early leaders about the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kingdom. Andrew had a great gift for discovering the hidden resources and latent talents of young people.

139:1.9 (1549.7) Very soon after Jesus' ascension on high, Andrew began the writing of a personal record of many of the sayings and doings of his departed Master. After Andrew's death other

졌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선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회람(回覽)되었다. 안드레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기록들은, 이 세상에서의 주(主)의 일생에 관해 사람들이 상당히 일관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전까지, 훗날에 편집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바뀌고, 첨부해졌다. 이러한 바뀌고 수정된 약간의 사본들의 마지막 사본은, 12 사도들 중의 첫째 사도가 원본을 쓴 이래 1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불에 타 없어졌다.

안드레는 명석한 통찰력, 논리적인 사고, 확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성격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할 바 없는 안정감에 있었다. 그의 성격적 단점은 열정이 결여된 것이었는데; 그는 현명한 칭찬으로 자기 연관-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여러 번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연관-동료들의 가치 있는 업적들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였던 것은, 아침이나 불성실에 대한 그의 혐오감 때문이었다. 안드레는 다재다능하고, 침착하며, 자립적이고, 자아-제작의, 그만그만한 관련사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사도들 각자가 모두 예수를 사랑하였지만, 12명 각자가 그에게 이끌린 것은, 각 사도들에게 특별히 호감을 주는 그의 어떤 개인성의 특색 때문이었음이 사실이다. 안드레는 예수의 일관적인 신중함과 변하지 않는 위엄으로 인하여 그를 탄복했다.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하였다.

나중에 있었던 박해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안드레는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지나 여행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한 후에, 결국에는 아카이아의 파트라에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였다. 이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만 이틀이나 걸렸으며, 이러한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하늘의 왕국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영향을 끼치도록 계속하였다.

제 2 장. 시몬 베드로

시몬이 사도로 가입하였을 때, 그는 30세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가버나움 가까이에 있는 벳세다에서 살았다. 그의 형인 안드레와 장모가 그와 함께 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 모두 세베대의 아들들과 동업하는 어부들이었다.

주(主)는 안드레가 시몬을 자신의 두 번째 사도로 소개시키기 이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 예수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별명이었다. 시몬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엉뚱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였다.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 별명에, 나중에 가서는 예수가 새롭고 의의(意義)깊은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 사실

copies of this private record were made and circulated freely among the early teachers of the Christian church. These informal notes of Andrew's were subsequently edited, amended, altered, and added to until they made up a fairly consecutive narrative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The last of these few altered and amended copies was destroyed by fire at Alexandria about one hundred years after the original was written by the first chosen of the twelve apostles.

139:1.10 (1550.1) Andrew was a man of clear insight, logical thought, and firm decision, whose great strength of character consisted in his superb stability. His temperamental handicap was his lack of enthusiasm; he many times failed to encourage his associates by judicious commendation. And this reticence to praise the worthy accomplishments of his friends grew out of his abhorrence of flattery and insincerity. Andrew was one of those all-round, even-tempered, self-made, and successful men of modest affairs.

139:1.11 (1550.2) Every one of the apostles loved Jesus, but it remains true that each of the twelve was drawn toward him because of some certain trait of personality which made a special appeal to the individual apostle. Andrew admired Jesus because of his consistent sincerity, his unaffected dignity. When men once knew Jesus, they were possessed with the urge to share him with their friends; they really wanted all the world to know him.

139:1.12 (1550.3) When the later persecutions finally scattered the apostles from Jerusalem, Andrew journeyed through Armenia, Asia Minor, and Macedonia and, after bringing many thousands into the kingdom, was finally apprehended and crucified in Patrae in Achaia. It was two full days before this robust man expired on the cross, and throughout these tragic hours he continued effectively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of the salv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2. SIMON PETER

139:2.1 (1550.4) When Simon joined the apostles, he was thirty years of age. He was married, had three children, and lived at Bethsaida, near Capernaum. His brother, Andrew, and his wife's mother lived with him. Both Peter and Andrew were fisher partners of the sons of Zebedee.

139:2.2 (1550.5) The Master had known Simon for some time before Andrew presented him as the second of the apostles. When Jesus gave Simon the name Peter, he did it with a smile; it was to be a sort of nickname. Simon was well known to all his friends as an erratic and impulsive fellow. True, later on, Jesus did attach a new and significant import to this lightly bestowed nickname.

이다.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격한 감정에 탐닉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면서 자라왔고; 생각 없이 말을 잘하였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곤경에 처하곤 하였다. 그의 이런 식의 경솔함은 또한 그의 친구들이나 연관-동료들 모두에게도 끊임없는 곤경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주(主)로부터 가벼운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한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들로 인하여 좀 더 많은 곤경에 빠져들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많은 계획들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모험을 하기 전에, 그의 형인 안드레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매우 일찍부터 터득한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웅변술이 좋고 극적인 유창한 웅변가였다. 그는 또한 본성적 그리고 영감을 주는 영도자였으며 생각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깊이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의 질문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질문들이 선하고 적절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생각 없이 나온 어리석은 것들이었다. 베드로는 심지(心地)가 깊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가슴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결정을 빨리 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경탄의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주(主)를 만나기 위해 물 속에 뛰어 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나갔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탄복하게 되었던 그의 특색은 뛰어난 친절함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관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결코 싫증나지 않았다. 그는, 그릇된 행동을 한 자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못하였다. 그는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경솔하게 예수를 부인한 직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날들 동안 주(主)의 관용의 성격에 대해 자기가 받았던 인상들을 많이 회상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애처로울 정도로 갈광질광하였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갑작스럽게 흔들리곤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에게 자신의 말을 씻기지 못하게 했다가, 주(主)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몸 전체를 씻겨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결국 예수는 베드로의 약점이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용기와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가장 희한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성격 중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우애(友愛)였다. 베드로는 실제로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오르는 격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한 소녀 하인의 놀림 때문에 자신의 주님이신 주(主)를 부인하게까지 되었다. 베드로는 박해나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모욕은 잘 견디었지만, 조롱 앞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위축되었다. 그는 전면 공격에 당해서는 용감한 병사였으나, 후면 습격에 의해 놀랄 때에는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겁쟁이었다.

139:2.3 (1550.6) Simon Peter was a man of impulse, an optimist. He had grown up permitting himself freely to indulge strong feelings; he was constantly getting into difficulties because he persisted in speaking without thinking. This sort of thoughtlessness also made incessant trouble for all of his friends and associates and was the cause of his receiving many mild rebukes from his Master. The only reason Peter did not get into more trouble because of his thoughtless speaking was that he very early learned to talk over many of his plans and schemes with his brother, Andrew, before he ventured to make public proposals.

139:2.4 (1550.7) Peter was a fluent speaker, eloquent and dramatic. He was also a natural and inspirational leader of men, a quick thinker but not a deep reasoner. He asked many questions, more than all the apostles put together, and while the majority of these questions were good and relevant, many of them were thoughtless and foolish. Peter did not have a deep mind, but he knew his mind fairly well. He was therefore a man of quick decision and sudden action. While others talked in their astonishment at seeing Jesus on the beach, Peter jumped in and swam ashore to meet the Master.

139:2.5 (1551.1) The one trait which Peter most admired in Jesus was his supernal tenderness. Peter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Jesus' forbearance. He never forgot the lesson about forgiving the wrongdoer, not only seven times but seventy times and seven. He thought much about these impressions of the Master's forgiving character during those dark and dismal days immediately following his thoughtless and unintended denial of Jesus in the high priest's courtyard.

139:2.6 (1551.2) Simon Peter was distressingly vacillating; he would suddenly swing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First he refused to let Jesus wash his feet and then, on hearing the Master's reply, begged to be washed all over. But, after all, Jesus knew that Peter's faults were of the head and not of the heart. He was one of the most inexplicable combinations of courage and cowardice that ever lived on earth. His great strength of character was loyalty, friendship. Peter really and truly loved Jesus. And yet despite this towering strength of devotion he was so unstable and inconstant that he permitted a servant girl to tease him into denying his Lord and Master. Peter could withstand persecution and any other form of direct assault, but he withered and shrank before ridicule. He was a brave soldier when facing a frontal attack, but he was a fear-cringing coward when surprised with an assault from the rear.

베드로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의 빌립의 일과 이방인 가운데서의 바울의 일들에 대하여, 예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나중에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부딪혔을 때, 그는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고, 일시적으로 이방인으로부터 물러난 것은 바울의 두려움이 없는 비난에 자신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예수의 병합된 인간성과 신성에 대하여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였으며 또한 첫 번째로—유다를 제외하고—예수를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심한 공상가는 아니었지만, 황홀함의 구름과 극적 몰입의 열정으로부터, 실체의 평범하고도 사실그대로의 세계로 내려 오기를 싫어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앞에서 이끌던 가 아니면 뒤에—“아주 멀찍이 떨어져서”—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12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고; 바울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동안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왕국을 설립하였고 메신저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냈다.

자신이 발견하였던 주(主)를 경솔하게 부인한 후, 그리고 사도들이 안드레의 동정심 있고 이해심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십자가형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들을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앞장섰다. 예수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자신이 주(主)의 양 떼 속으로 되돌아가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왕국의 불이 그의 혼속에서 너무나 밝게 불타올라서 어둠에 앉아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안에서 영도하는 영이 되기 전에, 베드로는 바빌론으로부터 고린도까지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그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까지도 방문하고 그들을 섬겼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성질에서나 교육 수준에서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까지도 서로 많이 달랐지만, 그들은 후반기의 세월 동안에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였다.

베드로의 방식과 가르침의 일부가 누가와 마가에 의해 기록된 설교 안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박력 있는 태도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그의 편지에서 좀 더 잘 나타나는데; 적어도 그것이 바울의 어떤 제자에 의해 나중에 변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결국 실체적이고 진정한 유대의 메시아였다고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오를 계속 범하였다. 죽는 바로 그 날까지,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개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개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즉 모든 인류를 사랑하

139:2.7 (1551.3) Peter was the first of Jesus' apostles to come forward to defend the work of Philip among the Samaritans and Paul among the gentiles; yet later on at Antioch he reversed himself when confronted by ridiculing Judaizers, temporarily withdrawing from the gentiles only to bring down upon his head the fearless denunciation of Paul.

139:2.8 (1551.4) He was the first one of the apostles to make wholehearted confession of Jesus' combined humanity and divinity and the first — save Judas — to deny him. Peter was not so much of a dreamer, but he disliked to descend from the clouds of ecstasy and the enthusiasm of dramatic indulgence to the plain and matter-of-fact world of reality.

139:2.9 (1551.5) In following Jesus, literally and figuratively, he was either leading the procession or else trailing behind — “following afar off.” But he was the outstanding preacher of the twelve; he did more than any other one man, aside from Paul,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send its messengers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in one generation.

139:2.10 (1551.6) After his rash denials of the Master he found himself, and with Andrew's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guidance he again led the way back to the fish nets while the apostles tarried to find out what was to happen after the crucifixion. When he was fully assured that Jesus had forgiven him and knew he had been received back into the Master's fold, the fires of the kingdom burned so brightly within his soul that he became a great and saving light to thousands who sat in darkness.

139:2.11 (1551.7) After leaving Jerusalem and before Paul became the leading spirit among the gentile Christian churches, Peter traveled extensively, visiting all the churches from Babylon to Corinth. He even visited and ministered to many of the churches which had been raised up by Paul. Although Peter and Paul differed much in temperament and education, even in theology, they worked together harmoniously for the upbuilding of the churches during their later years.

139:2.12 (1552.1) Something of Peter's style and teaching is shown in the sermons partially recorded by Luke and in the Gospel of Mark. His vigorous style was better shown in his letter known as the First Epistle of Peter; at least this was true before it was subsequently altered by a disciple of Paul.

139:2.13 (1552.2) But Peter persisted in making the mistake of trying to convince the Jews that Jesus was, after all, really and truly the Jewish Messiah. Right up to the day of his death, Simon Peter continued to suffer confusion in his mind between the concepts of Jesus as the Jewish Messiah, Christ as the world's redeemer, and the Son of

는 아버지의 계시라는 개념 사이에서 계속 혼란을 겪었다.

베드로의 아내는 매우 유능한 여인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여인들 무리단의 요원으로 일했으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당하자 그녀는 그의 선교여행은 물론이고 교회 방문에도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저명한 자기 남편이 죽음을 당하는 날, 그녀도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와 친밀하였던, 내부 모임의 하나였던, 이 베드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사명활동이 완수될 때까지, 힘과 영광으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를 체포한 자가 그도 역시 그의 주(主)처럼—십자가에 달려서—죽어야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자신을 높은 명예를 받는 자로 여겼다.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였다.

제 3 장. 야고보 세베대

예수가 “우뢰(雨雷)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였던 세베대의 아들인 두 사도들 중에서, 형인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을 때 30세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가버나움의 근교에 있는 벳세다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어부였으며, 자기의 동생인 요한과 함께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과 공동으로 자기 소명에 열성을 다하였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들 보다 예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이점(利點)이 있었다.

이 유능한 사도는 모순 덩어리의 기질을 가졌다; 그는 실제로 두개의 본성을 소유한 듯 하였고, 둘 모두가 강한 감정으로 작용되었다. 그는 분개가 치밀어 오르면, 두드러지게 과격하였다. 그는 성질이 한번 잘못 건드리지면, 불같은 성미를 나타냈으며, 폭풍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는 그것이 전적으로 정의로운 분개의 현시활동이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언제나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주기적인 분노의 노출을 제외하면, 야고보의 인간성은 안드레의 인간성과 비슷하였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안드레의 사려 깊은 분별력이나 통찰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안드레보다 훨씬 나은 대중 웅변가였다. 마태가 없었다면,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12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 웅변가였다.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도 기분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는 조용하고 과묵하다가 다음 날엔 말이 많은 수다쟁이가 되곤 하였다. 그는 흔히 예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하였지만, 12명 중에서는 한꺼번에 며칠씩이나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렇게 기묘하게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야고보의 개인성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

Man as the revelation of God, the loving Father of all mankind.

139:2.14 (1552.3) Peter's wife was a very able woman. For years she labored acceptably as a member of the women's corps, and when Peter was driven out of Jerusalem, she accompanied him upon all his journeys to the churches as well as on all his missionary excursions. And the day her illustrious husband yielded up his life, she was thrown to the wild beasts in the arena at Rome.

139:2.15 (1552.4) And so this man Peter, an intimate of Jesus, one of the inner circle, went forth from Jerusalem proclaiming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with power and glory until the fullness of his ministry had been accomplished; and he regarded himself as the recipient of high honors when his captors informed him that he must die as his Master had died — on the cross. And thus was Simon Peter crucified in Rome.

3. JAMES ZEBEDEE

139:3.1 (1552.5) James, the older of the two apostle sons of Zebedee, whom Jesus nicknamed “sons of thunder,” was thirty years old when he became an apostle. He was married, had four children, and lived near his parents in the outskirts of Capernaum, Bethsaida. He was a fisherman, plying his calling in company with his younger brother John and in association with Andrew and Simon. James and his brother John enjoyed the advantage of having known Jesus longer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139:3.2 (1552.6) This able apostle was a temperamental contradiction; he seemed really to possess two natures, both of which were actuated by strong feelings. He was particularly vehement when his indignation was once fully aroused. He had a fiery temper when once it was adequately provoked, and when the storm was over, he was always wont to justify and excuse his anger under the pretense that it was wholly a manifestation of righteous indignation. Except for these periodic upheavals of wrath, James's personality was much like that of Andrew. He did not have Andrew's discretion or insight into human nature, but he was a much better public speaker. Next to Peter, unless it was Matthew, James was the best public orator among the twelve.

139:3.3 (1552.7) Though James was in no sense moody, he could be quiet and taciturn one day and a very good talker and storyteller the next. He usually talked freely with Jesus, but among the twelve, for days at a time he was the silent man. His one great weakness was these spells of unaccountable silence.

139:3.4 (1552.8) The outstanding feature of James's

나의 일에 대한 모든 면들을 볼 수 있는 힘이었다. 12명 전체 중에서, 그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인 취지와 의의(意義)를 가장 근접하게 파악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주(主)께서 의미하는 바를 더디게 이해하였지만, 그들이 훈련을 모두 끝마치기 전에, 그는 예수의 메시지로부터 우월한 개념을 취득하였다. 야고보는 인간 본성의 넓은 영역을 납득할 수 있었다; 다재다능한 안드레와, 충동적인 베드로와, 자아-억제적인 자기 동생 요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얼마나 서로 잘 지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만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지내지는 못하였지만, 특별히 그렇게 고집이 세고 단호한 그 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두 형제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 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일겠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다는 서로 각자에게 더 많은 참을성을 베풀었다. 그들은 서로 매우 다정했으며, 언제나 좋은 놀이 동무가 되었다. 자기들의 주(主)에게 불경스럽게 대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들을 없애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우뢰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하여 동생인 요한의 격렬한 성질은 많이 누그러졌다.

야고보가 가장 감탄한 예수의 특징은 주(主)의 동정심 많은 애정이었다. 작은 자와 위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의 납득하는 관심은 그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

야고보 세베대는 균형이 잡힌 사색자이며 계획가였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사도 그룹에서 좀더 안정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격렬한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성급히 굴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하였다.

그는 겸손하였고, 극적이지 않았으며, 매일의 일에 충실한, 잘난 체 하지 않는 일꾼이었고, 일단 왕국에 대한 실제 의미를 파악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특별한 보상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예수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고 예수께 물어보았다는 그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야고보가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책임들을 맡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을 때, 주(主)께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동참하는 일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은 또한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고 하였다는 점을 꼭 알아야만 한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참말이었다.—그는 일찍이 헤롯 아그립바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순교를 체험하는 사도들 중 첫 번째임을 보여주면서, 주(主)와 함께 잔을 마셨

personality was his ability to see all sides of a proposition. Of all the twelve, he came the nearest to grasping the real import and significance of Jesus' teaching. He, too, was slow at first to comprehend the Master's meaning, but ere they had finished their training, he had acquired a superior concept of Jesus' message. James was able to understand a wide range of human nature; he got along well with the versatile Andrew, the impetuous Peter, and his self-contained brother John.

139:3.5 (1553.1) Though James and John had their troubles trying to work together, it was inspiring to observe how well they got along. They did not succeed quite so well as Andrew and Peter, but they did much better than would ordinarily be expected of two brothers, especially such headstrong and determined brothers. But, strange as it may seem, these two sons of Zebedee were much more tolerant of each other than they were of strangers. They had great affection for one another; they had always been happy playmates. It was these “sons of thunder” who wanted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 Samaritans who presumed to show disrespect for their Master. But the untimely death of James greatly modified the vehement temperament of his younger brother John.

139:3.6 (1553.2) That characteristic of Jesus which James most admired was the Master's sympathetic affection. Jesus' understanding interest in the small and the great, the rich and the poor, made a great appeal to him.

139:3.7 (1553.3) James Zebedee was a well-balanced thinker and planner. Along with Andrew, he was one of the more level-headed of the apostolic group. He was a vigorous individual but was never in a hurry. He was an excellent balance wheel for Peter.

139:3.8 (1553.4) He was modest and undramatic, a daily server, an unpretentious worker, seeking no special reward when he once grasped something of the real meaning of the kingdom. And even in the story about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who asked that her sons be granted places on the right hand and the left hand of Jesu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was the mother who made this request. And when they signified that they were ready to assume such responsibiliti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y were cognizant of the dangers accompanying the Master's supposed revolt against the Roman power, and that they were also willing to pay the price. When Jesus asked if they were ready to drink the cup, they replied that they were. And as concerns James, it was literally true — he did drink the cup with the Master, seeing that he was the first of the apostles to experience martyrdom, being early put to death with the sword by Herod Agrippa. James was thus

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 왕국의 새로운 전선(戰線)에서 12명 중 처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쳤다. 헤롯 아그립바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야고보를 특히 두려워하였다. 그는 때로는 정말로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신념이 자극되어지고 도전을 당하면 용감하였고 흔들리지 않았다.

야고보는 그의 일생을 충실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너무도 우아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버티었기에, 재판과 처형장에 참석하였던, 그를 비난하고 고발한 사람까지도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야고보의 처형장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합류하였다.

제 4 장. 요한 세베대

요한은 사도가 되었을 때, 24세였고 12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벳세다에서 자기 부모와 함께 살았다; 형인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동업으로 어부의 일을 하였다.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 모두, 요한은 주(主)의 가족에 관계되는 일에서 예수의 개인적 대리인의 일을 하였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줄곧 이 책임을 맡아 보았다.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테다가 가족 관련사로 예수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主)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가 사랑한 제자”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너희가 보기에도 예수처럼 도량이 넓은 개인성이 다른 사람들 보다 한 사람을 편애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아왔다는 사실을 체쳐놓더라도, 그가 예수의 3명의 개인적 측근 보조원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된 관념을 더 심화시켜 주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사도로 된 후 곧 예수의 개인적 보조원들로 임명되었다. 12명이 선택된 직후에 그리고 예수가 안드레를 그 무리들의 단장으로 임명할 때, 그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네가 너의 연관-동료들 중에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곁에 남아서 나를 돕고 일상적인 일들을 보살피 줄 두 세 사람을 선택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에 자기 다음으로 뽑힌 3명의 사도들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렇게 축복 받은 봉사에 자신이 자원하고 싶었지만, 주(主)는 이미 자기에게 다른 임무를 맡겼으므로; 즉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의 곁에서 시종들도록 임명하였던 것이다.

요한 세베대는 성격상 좋은 특색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던 성격은, 그의 과도한 그러나 잘 숨겨진 자만심이었다. 예수와 오랫동안 지낸 기간들은 그의 성격에 많은

the first of the twelve to sacrifice his life upon the new battle line of the kingdom. Herod Agrippa feared James above all the other apostles. He was indeed often quiet and silent, but he was brave and determined when his convictions were aroused and challenged.

139:3.9 (1553.5) James lived his life to the full, and when the end came, he bore himself with such grace and fortitude that even his accuser and informer, who attended his trial and execution, was so touched that he rushed away from the scene of James's death to join himself to the disciples of Jesus.

4. JOHN ZEBEDEE

139:4.1 (1553.6) When he became an apostle, John was twenty-four years old and was the youngest of the twelve. He was unmarried and lived with his parents at Bethsaida; he was a fisherman and worked with his brother James in partnership with Andrew and Peter. Both before and after becoming an apostle, John functioned as the personal agent of Jesus in dealing with the Master's family, and he continued to bear this responsibility as long as Mary the mother of Jesus lived.

139:4.2 (1553.7) Since John was the youngest of the twelve and so closely associated with Jesus in his family affairs, he was very dear to the Master, but it cannot be truthfully said that he w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You would hardly suspect such a magnanimous personality as Jesus to be guilty of showing favoritism, of loving one of his apostles more than the others. The fact that John was one of the three personal aides of Jesus lent further color to this mistaken idea, not to mention that John, along with his brother James, had known Jesus longer than the others.

139:4.3 (1554.1) Peter, James, and John were assigned as personal aides to Jesus soon after they became apostles. Shortly after the selection of the twelve and at the time Jesus appointed Andrew to act as director of the group, he said to him: “And now I desire that you assign two or three of your associates to be with me and to remain by my side, to comfort me and to minister to my daily needs.” And Andrew thought best to select for this special duty the next three first-chosen apostles. He would have liked to volunteer for such a blessed service himself, but the Master had already given him his commission; so he immediately directed that Peter, James, and John attach themselves to Jesus.

139:4.4 (1554.2) John Zebedee had many lovely traits of character, but one which was not so lovely was his inordinate but usually well-concealed conceit. His long association with Jesus made many and

좋은 변화를 주었다. 이 자만심이 매우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다소 유치해지기 시작한 후에는, 이 자아-존경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가 나단을 시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 때, 나이 많은 이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로 계속해서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세상의 어떤 필사자들보다 더 가까운 예수의 친구였다는 점, 그가 많은 일들의 경우에 예수가 선택한 그의 개인적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간주해 볼 때,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로 자신을 여겼던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야말로 예수가 자주 신임하셨던 제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한의 성격 중에서 가장 강한 특색은 그의 신뢰성 이었다; 그는 신속했고 용감했으며,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징적인 자만심이었다. 그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 막내였고 사도 그룹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렸다. 아마도 그는 좀 버릇이 없었는지 모르며; 아마도 좀 지나치게 비위가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의 요한은, 24세에 예수의 사도로 참가하였던 당시의, 자아-찬탄이 있는 제멋대로였던 젊은이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요한이 가장 좋아하였던 예수의 특징들은, 그 주(主)의 사랑과 사심-없음이었는데; 이러한 특색들이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후의 그의 전 일생은 사랑의 정서와 형제로서의 헌신으로 지배되어졌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사랑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 “우뢰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에서 이 연로한 감독이 더 이상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앉은 채로 교회로 옮겨야만 하였을 때, 그리고 예배봉사를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몇 마디의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해 동안을 걸쳐 그는 오로지,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하였다.

요한은 감정이 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은 많이 하였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질이 많이 양순해졌고, 좀 더 잘 통제되었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이러한 성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묵함을 충분히 극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목할 만한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의 선물을 갖고 있었다.

요한에게는 이러한 조용하고 내성적 유형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다소간 웅술하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참을성이 없었다. 이 면에서는 그와 야고보는 매우 닮은 편이었다.—그들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려 무례한 사마리아인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기를 원하였다. 요한은, 어떤 낮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제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아-존경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단지 요한 하나뿐이었던 것은 아니다.

great changes in his character. This conceit was greatly lessened, but after growing old and becoming more or less childish, this self-esteem reappeared to a certain extent, so that, when engaged in directing Nathan in the writing of the Gospel which now bears his name, the aged apostle did not hesitate repeatedly to refer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In view of the fact that John came nearer to being the chum of Jesus than any other earth mortal, that he was his chosen personal representative in so many matters, it is not strange that he should have come to regard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ince he most certainly knew he was the disciple whom Jesus so frequently trusted.

139:4.5 (1554.3) The strongest trait in John's character was his dependability; he was prompt and courageous, faithful and devoted. His greatest weakness was this characteristic conceit. He was the youngest member of his father's family and the youngest of the apostolic group. Perhaps he was just a bit spoiled; maybe he had been humored slightly too much. But the John of after years was a very different type of person than the self-admiring and arbitrary young man who joined the ranks of Jesus' apostles when he was twenty-four.

139:4.6 (1554.4) Those characteristics of Jesus which John most appreciated were the Master's love and unselfishness; these traits made such an impression on him that his whole subsequent life became dominated by the sentiment of love and brotherly devotion. He talked about love and wrote about love. This “son of thunder” became the “apostle of love”; and at Ephesus, when the aged bishop was no longer able to stand in the pulpit and preach but had to be carried to church in a chair, and when at the close of the service he was asked to say a few words to the believers, for years his only utterance was, “My little children, love one another.”

139:4.7 (1554.5) John was a man of few words except when his temper was aroused. He thought much but said little. As he grew older, his temper became more subdued, better controlled, but he never overcame his disinclination to talk; he never fully mastered this reticence. But he was gifted with a remarkable and creative imagination.

139:4.8 (1555.1) There was another side to John that one would not expect to find in this quiet and introspective type. He was somewhat bigoted and inordinately intolerant. In this respect he and James were much alike — they both wanted to call down fire from heaven on the heads of the disrespectful Samaritans. When John encountered some strangers teaching in Jesus' name, he promptly forbade them. But he was not the only one of the twelve who was tainted with this kind of self-esteem and superiority

요한의 일생은, 예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워 놓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 집이 없이 다니는 광경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가족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그와의 관계가 차츰 소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동정하였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신뢰와 더불어, 이 모든 상황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은 현저하게 그리고 영구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그 변화들은 훗날의 그의 온 일생을 통하여 현시되었다.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냉철하고 대담한 용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가 체포된 날 밤에도 예수를 따라 갔었고,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 자기 주(主)를 대담하게 동행하였던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곁을 지켰으며,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그의 신뢰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켰으며, 주(主)의 필사자 실존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추가적인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곁에 있었다. 요한이 굉장히 믿을 만하였다는 그 한 가지 점은 확실하였다. 12사도들이 식사를 할 때, 요한은 대개 예수의 오른 편에 앉았다. 12사도들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실제로 충분하게 부활을 믿었으며, 부활한 예수가 해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주(主)를 알아 본 사람도 그였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그리스도교 운동의 초기 활동들에 있어서 베드로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후원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순절 날에 그는 베드로의 오른 팔 역할을 하였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 몇 년 뒤에, 요한은 과부가 된 자기 형수와 결혼하였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20년간은 사랑스러운 손녀의 보살핌을 받았다.

요한은 여러 차례 구속되었고, 다른 황제가 로마에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 4년 동안 팟모섬으로 유배되었다. 요한이 약삭빠르거나 영리하지 못했었다면, 형인 야고보보다 더욱 더 거침없이 말하는 그 역시 처형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더불어, 정부의 고관들 앞에 불러 나갔을 때 그들은 현명한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물리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 대신에 오히려 “인류의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들”으로서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도 배웠다. 그들은 지배하는 힘—왕국과 왕—보다는 사랑하는 봉사를 가르쳤다.

팟모섬에 잠시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계시록

consciousness.

139:4.9 (1555.2) John's life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sight of Jesus' going about without a home as he knew how faithfully he had made provision for the care of his mother and family. John also deeply sympathized with Jesus because of his family's failure to understand him, being aware that they were gradually withdrawing from him. This entire situation, together with Jesus' ever deferring his slightest wish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his daily life of implicit trust, made such a profound impression on John that it produced marked and permanent changes in his character, changes which manifested themselves throughout his entire subsequent life.

139:4.10 (1555.3) John had a cool and daring courage which few of the other apostles possessed. He was the one apostle who followed right along with Jesus the night of his arrest and dared to accompany his Master into the very jaws of death. He was present and near at hand right up to the last earthly hour and was found faithfully carrying out his trust with regard to Jesus' mother and ready to receive such additional instructions as might be given during the last moments of the Master's mortal existence. One thing is certain, John was thoroughly dependable. John usually sat on Jesus' right hand when the twelve were at meat. He was the first of the twelve really and fully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he w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Master when he came to them on the seashore after his resurrection.

139:4.11 (1555.4) This son of Zebedee was very closely associated with Peter in the early activities of the Christian movement, becoming one of the chief supporters of the Jerusalem church. He was the right-hand support of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139:4.12 (1555.5) Several years after the martyrdom of James, John married his brother's widow. The last twenty years of his life he was cared for by a loving granddaughter.

139:4.13 (1555.6) John was in prison several times and was banished to the Isle of Patmos for a period of four years until another emperor came to power in Rome. Had not John been tactful and sagacious, he would undoubtedly have been killed as was his more outspoken brother James. As the years passed, John, together with James the Lord's brother, learned to practice wise conciliation when they appeared before the civil magistrates. They found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They also learned to represent the church as a “spiritual brotherhood devoted to the social service of mankind” rather than as “the kingdom of heaven.” They taught loving service rather than ruling power — kingdom and king.

139:4.14 (1555.7) When in temporary exile on Patmos,

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단축되어지고 왜곡되어진 형태의 것이다. 이 계시록은 어떤 엄청난 계시의 잔존하는 단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많은 부분들이 실종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제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단편적이고 다른 것이 섞여진 상태에서 보존되어 왔다.

요한은 많은 여행을 하였고, 쉬지 않고 일을 하였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이 된 후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99세 때에 에베소에서 자기 연관-동료인 나단에게 소위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글을 쓰도록 지도하였다. 12 사도들 모두 중에서, 결국에는 요한 세베대가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다. 그는 에베소에서 그의 나이 101세인 서기 103년에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제 5 장. 호기심 많은 빌립

빌립은 다섯 번째로 뽑힌 사도였는데, 예수와 그의 첫 4명의 사도들이 요한을 만난 후 갈릴리의 가나로 가는 도중에 요단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가 벳세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와 이미 아는 사이였지만, 요단 계곡에서 예수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실제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고 있었다.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해방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 얼마간의 영향을 받았다.

빌립이 사도로 참여했을 때, 그는 27세였는데; 최근에 결혼을 하였고, 아이는 아직 없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호기심”이라는 뜻의 단어로 별명을 붙여 주었다. 빌립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였다. 그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도 결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듯 하였다. 그는 바보스럽지는 않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하였다. 이 상상력의 결핍은 그의 성격상 단점이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사람이었다.

사도들이 봉사를 위하여 조직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빌립은 사무장(事務長)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항상 원활하게 공급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그의 가장 강한 특징은 형식적인 철저함이었는데; 그는 수학적이며 체계적이었다.

빌립의 가족에는 3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이 있었다. 그는 둘째였는데, 부활 후에는 그의 온 가족을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립의 친족들은 모두 어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힘이 있었고, 깊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빌립은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들을 큰일처럼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매우 잘 적절하게 하였다. 4년 동안에, 모든 사

John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you now have in greatly abridged and distorted form. This Book of Revelation contains the surviving fragments of a great revelation, large portions of which were lost, other portions of which were removed, subsequent to John's writing. It is preserved in only fragmentary and adulterated form.

139:4.15 (1555.8) John traveled much, labored incessantly, and after becoming bishop of the Asia churches, settled down at Ephesus. He directed his associate, Nathan, in the writing of the so-called “Gospel according to John,” at Ephesus, when he was ninety-nine years old. Of all the twelve apostles, John Zebedee eventually became the outstanding theologian. He died a natural death at Ephesus in A.D. 103 when he was one hundred and one years of age.

5. PHILIP THE CURIOUS

139:5.1 (1556.1) Philip was the fifth apostle to be chosen, being called when Jesus and his first four apostles were on their way from John's rendezvous on the Jordan to Cana of Galilee. Since he lived at Bethsaida, Philip had for some time known of Jesus, but it had not occurred to him that Jesus was a really great man until that day in the Jordan valley when he said, “Follow me.” Philip was also somewhat influenced by the fact that Andrew, Peter, James, and John had accepted Jesus as the Deliverer.

139:5.2 (1556.2) Philip was twenty-seven years of age when he joined the apostles; he had recently been married, but he had no children at this time. The nickname which the apostles gave him signified “curiosity.” Philip was always wanting to be shown. He never seemed to see very far into any proposition. He was not necessarily dull, but he lacked imagination. This lack of imagination was the great weakness of his character. He was a commonplace and matter-of-fact individual.

139:5.3 (1556.3) When the apostles were organized for service, Philip was made steward; it was his duty to see that they were at all times supplied with provisions. And he was a good steward. His strongest characteristic was his methodical thoroughness; he was both mathematical and systematic.

139:5.4 (1556.4) Philip came from a family of seven, three boys and four girls. He was next to the oldest, and after the resurrection he baptized his entire family into the kingdom. Philip's people were fisherfolk. His father was a very able man, a deep thinker, but his mother was of a very mediocre family. Philip was not a man who could be expected to do big things, but he was a man who could do little things in a big way, do them well and

람들을 먹일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실패한 것은 단지 몇 번뿐이었다. 그들이 지내는 동안 겪었던 많은 비상시(非常時)에도, 그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은 거의 없었다. 사도들 집단의 물자조달 부서는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

빌립의 강점은 그의 조직적인 확실성에 있었고; 체질상 약점은 상상력의 철저한 결핍으로,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라는 생각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추상적인 것에서는 수학적이었지만, 상상력에 있어서는 건설적이지 아니었다. 그는 특정 유형의 상상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해 온 군중들 가운데는 그런 남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주(主)의 위원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 높여진 것을 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다; 그들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이미 왕국의 관련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예수는 빌립의 우둔한 질문들에 대하여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눈에 보여 달라”는 자기 사무장의 요구에 그토록 여러 번 응하면서, 어떤 인간들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빌립이 계속해서 탄복해 마지않았던 예수에 관한 한 가지의 본질특성은 주(主)의 끊임없는 관대함이었다. 빌립은 예수로부터 용졸하고, 인색하고, 제제한 어떤 것을 결코 볼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항상 나타나는 변함없이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너그러움을 경배하였다.

빌립의 개인성에는 감탄할 만 한 점은 거의 없었다.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성읍인 벳세다의 빌립”이라고 흔히 불렸다. 그는 거의 선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극적인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는 비관론적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평범하였다. 그는 또한 영적 통찰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는 명백하게 우둔한 질문을 가지고, 주(主)의 심오한 강연 중간에 예수를 중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생각이 모자란 점에 대하여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다; 빌립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였고, 가르침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참작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한번이라도 이러한 방해되는 질문들에 대해 그를 책망한다면, 그 견책은 빌립을 매우 상하게 하여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매우 잘 아셨다. 예수는 우주에 있는 그의 공간 세계들 속에는 빌립과 비슷하게 생각이 더딘 혼들이 수 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그들의 질문들이나 문제들을 자기에게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도록 용기를 북돋울 수 있기를 원하였다. 아무튼, 예수는 자기가 설교하려던 교훈들보다도 빌립의 우둔한 질문들에 실제로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는 진정한 사람들에, 모든 종류의 인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셨다.

acceptably. Only a few times in four years did he fail to have food on hand to satisfy the needs of all. Even the many emergency demands attendant upon the life they lived seldom found him unprepared. The commissary department of the apostolic family was intelligently and efficiently managed.

139:5.5 (1556.5) The strong point about Philip was his methodical reliability; the weak point in his make-up was his utter lack of imagination, the absence of the ability to put two and two together to obtain four. He was mathematical in the abstract but not constructive in his imagination. He was almost entirely lacking in certain types of imagination. He was the typical everyday and commonplace average man. There were a great many such men and women among the multitudes who came to hear Jesus teach and preach, and they derived great comfort from observing one like themselves elevated to an honored position in the councils of the Master; they derived courage from the fact that one like themselves had already found a high place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And Jesus learned much about the way some human minds function as he so patiently listened to Philip's foolish questions and so many times complied with his steward's request to “be shown.”

139:5.6 (1556.6) The one quality about Jesus which Philip so continuously admired was the Master's unfailing generosity. Never could Philip find anything in Jesus which was small, niggardly, or stingy, and he worshiped this ever-present and unfailing liberality.

139:5.7 (1557.1) There was little about Philip's personality that was impressive. He was often spoken of as “Philip of Bethsaida, the town where Andrew and Peter live.” He was almost without discerning vision; he was unable to grasp the dramatic possibilities of a given situation. He was not pessimistic; he was simply prosaic. He was also greatly lacking in spiritual insight. He would not hesitate to interrupt Jesus in the midst of one of the Master's most profound discourses to ask an apparently foolish question. But Jesus never reprimanded him for such thoughtlessness; he was patient with him and considerate of his inability to grasp the deeper meanings of the teaching. Jesus well knew that, if he once rebuked Philip for asking these annoying questions, he would not only wound this honest soul, but such a reprimand would so hurt Philip that he would never again feel free to ask questions. Jesus knew that on his worlds of space there were untold billions of similar slow-thinking mortals, and he wanted to encourage them all to look to him and always to feel free to come to him with their questions and problems. After all, Jesus was really more interested in Philip's foolish questions than in the sermon he might be preaching. Jesus was supremely interested in *men*, all kinds of men.

이 사도 사무장은 훌륭한 대중 연사는 아니었지만, 매우 설득력 있고 성공적인 개인적 일꾼이었다. 그는 쉽게 용기를 잃지 않았다; 자기가 맡은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하고 매우 끈기가 있는 일꾼이었다. 그에게는 “오라”라고 말하는 훌륭한 고도 보기 드문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로 개종시킨 나다니엘이 예수와 나사렛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쟁하고자 하였을 때, 빌립의 효력적인 대답은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청중들에게 “가라”—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라—고 훈계하는 독단적인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오라”—“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길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대처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가르침의 모든 형태나 위상에 있어서 언제나 효력 있는 기법이다. 부모들까지도 빌립으로부터 더 훌륭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가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적응하지 못하는 빌립의 무능력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인들이 그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잘 나타나고 있다. 빌립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가 유대인이었다면 “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으며, 빌립은 자기 상급자(上官)로부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우두머리인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후에 둘이서 그리스인들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마찬가지로, 주(主)의 지시를 따라 신자(信者)들에게 설교와 세례를 주러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는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자기 손을 개종자들 머리 위에 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일은 그때 모(母)교회를 대표하여 그의 일을 관찰하러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실행되었다.

빌립은 주(主)의 죽음에 대하여 시험을 당하는 체험을 하였으며, 12사도의 재조직에 참여하였고, 왕국의 일을 위해 유대인들 이외의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나아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그의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의 훗날의 모든 수고들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빌립의 부인은 여인들 대원중에서 능률적인 회원이었고, 예루살렘 박해로부터 도주한 이후의 복음전파에서 자기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의 부인은 두려움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빌립의 십자가 밑에 서서 그에게 그의 살인자들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격려했으며, 그의 힘이 다하자, 그녀는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짐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낭송하기 시작하였고, 성난 유대인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으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잠잠하였다. 그들의 딸 레아는 그들의 일을 이어받았고 나중에 가서는 히에라폴리스의 저명한 여(女)선지자가 되었다.

139:5.8 (1557.2) The apostolic steward was not a good public speaker, but he was a very persuasive and successful personal worker. He was not easily discouraged; he was a plodder and very tenacious in anything he undertook. He had that great and rare gift of saying, “Come.” When his first convert, Nathaniel, wanted to argue about the merits and demerits of Jesus and Nazareth, Philip’s effective reply was, “Come and see.” He was not a dogmatic preacher who exhorted his hearers to “Go” — do this and do that. He met all situations as they arose in his work with “Come” — “come with me; I will show you the way.” And that is always the effective technique in all forms and phases of teaching. Even parents may learn from Philip the better way of saying to their children *not* “Go do this and go do that,” but rather, “Come with us while we show and share with you the better way.”

139:5.9 (1557.3) The inability of Philip to adapt himself to a new situation was well shown when the Greeks came to him at Jerusalem, saying: “Sir, we desire to see Jesus.” Now Philip would have said to any Jew asking such a question, “Come.” But these men were foreigners, and Philip could remember no instructions from his superiors regarding such matters; so the only thing he could think to do was to consult the chief, Andrew, and then they both escorted the inquiring Greeks to Jesus. Likewise, when he went into Samaria preaching and baptizing believers, as he had been instructed by his Master, he refrained from laying hands on his converts in token of their having received the Spirit of Truth. This was done by Peter and John, who presently came down from Jerusalem to observe his work in behalf of the mother church.

139:5.10 (1557.4) Philip went on through the trying times of the Master’s death, participat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twelve, and was the first to go forth to win souls for the kingdom outside of the immediate Jewish ranks, being most successful in his work for the Samaritans and in all his subsequent labors in behalf of the gospel.

139:5.11 (1557.5) Philip’s wife, who was an efficient member of the women’s corps, became actively associated with her husband in his evangelistic work after their flight from the Jerusalem persecutions. His wife was a fearless woman. She stood at the foot of Philip’s cross encouraging him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even to his murderers, and when his strength failed, she began the recital of the story of salvation by faith in Jesus and was silenced only when the irate Jews rushed upon her and stoned her to death. Their eldest daughter, Leah, continued their work, later on becoming the renowned prophetess of

한 때 12사도의 사무장이었던 빌립은, 그가 가는 곳마다 혼들을 구제한, 왕국 안에서 막강한 사람이었다; 최후에는 자기 신앙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히에라폴리스에 묻혔다.

제 6 장. 정직한 나다니엘

6번째이며, 주(主)가 직접 뽑은 자로서는 마지막으로 되는 나다니엘은, 자기 친구 빌립에 의해 예수께로 안내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빌립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나다니엘이 사도로 참여하였을 때, 그는 25세였고 그 그룹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어렸다. 그는 일곱 명 가족 중에서 막내였고 미혼이었으며, 가나에서 함께 사는 나이 들고 허약한 부모의 유일한 부양자였는데; 그의 형들과 누나들은 결혼을 했거나 죽어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가롯 유다는 12명 중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았다. 나다니엘은 상인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가 직접 나다니엘에게 별명을 지어 주신 일은 없었지만, 12사도들은 곧 그를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의 용어로 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큰 장점이었다; 그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격상 단점은 자부심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가족, 도시, 명성, 민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들은 그가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만 았었다면,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기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기 개인적 견해로 개별 존재들을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보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하였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부심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지는 았았다. 그는 예수의 얼굴을 일단 살펴보았을 때, 자기 태도를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았았다.

여러 면에서 나다니엘은 12사도들 중에서 이상스러운 천재였다. 그는 사도이면서 철학자였고 공상가였지만, 매우 실천적인 공상가였다. 그는 한 동안은 심오한 철학에 젖어 있다가 또 얼마 동안은 보기 드문 익살스러운 유머를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에는 그는 어쩌면 12명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다. 예수는 심각한 일들은 물론,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도 나다니엘의 강연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나다니엘은 날이 갈수록, 예수와 왕국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았았다.

사도들 모두는 나다니엘을 사랑하고 존중하였으며, 그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Hierapolis.

139:5.12 (1558.1) Philip, the onetime steward of the twelve, was a mighty man in the kingdom, winning souls wherever he went; and he was finally crucified for his faith and buried at Hierapolis.

6. HONEST NATHANIEL

139:6.1 (1558.2) Nathaniel, the sixth and last of the apostles to be chosen by the Master himself, was brought to Jesus by his friend Philip. He had been associated in several business enterprises with Philip and, with him, was on the way down to see John the Baptist when they encountered Jesus.

139:6.2 (1558.3) When Nathaniel joined the apostles, he was twenty-five years old and was the next to the youngest of the group. He was the youngest of a family of seven, was unmarried, and the only support of aged and infirm parents, with whom he lived at Cana; his brothers and sister were either married or deceased, and none lived there. Nathaniel and Judas Iscariot were the two best educated men among the twelve. Nathaniel had thought to become a merchant.

139:6.3 (1558.4) Jesus did not himself give Nathaniel a nickname, but the twelve soon began to speak of him in terms that signified honesty, sincerity. He was “without guile.” And this was his great virtue; he was both honest and sincere. The weakness of his character was his pride; he was very proud of his family, his city, his reputation, and his nation, all of which is commendable if it is not carried too far. But Nathaniel was inclined to go to extremes with his personal prejudices. He was disposed to prejudge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his personal opinions. He was not slow to ask the question, even before he had met Jesus,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But Nathaniel was not obstinate, even if he was proud. He was quick to reverse himself when he once looked into Jesus’ face.

139:6.4 (1558.5) In many respects Nathaniel was the odd genius of the twelve. He was the apostolic philosopher and dreamer, but he was a very practical sort of dreamer. He alternated between seasons of profound philosophy and periods of rare and droll humor; when in the proper mood, he was probably the best storyteller among the twelve. Jesus greatly enjoyed hearing Nathaniel discourse on things both serious and frivolous. Nathaniel progressively took Jesus and the kingdom more seriously, but never did he take himself seriously.

139:6.5 (1558.6) The apostles all loved and respected Nathaniel, and he got along with them splendidly,

매우 잘 지냈다. 유다는 나다니엘이 그의 사도됨을 충분하리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한 번은 무모하게도 예수께 몰래 가서 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유다야, 너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너의 직무에서 너무 넘어서지 말아라.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형제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겠느냐? 자기 자녀들이 일생의 심각한 일들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거듭하여 말하는데, 나는 육신을 가진 나의 형제들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일생을 좀 더 풍성하게 갖게 하려고 왔다. 유다야, 이제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이나 잘하고, 너의 형제인 나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하느님과 해결하도록 혼자 내버려두어라.” 그리고 이 기억은, 다른 많은 비슷한 체험들과 함께, 가룟 유다의 자아-기만하는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 사도들 사이에서 일들이 긴박해지고 복잡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 안드레까지도 그의 울적한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다니엘이 약간의 철학이나 혹은 문득 떠오르는 유머로, 그것도 재미있는 유머로, 긴장감을 풀어주곤 하였다.

나다니엘의 임무는 12사도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자주 사도들의 협의회에 결석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맡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병자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가족을 방문하였기 때문이었다. 12사도들은 자기 가족의 안녕이 나다니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다.

나다니엘이 예수를 가장 존경했던 점은 그의 포용력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의 관대한 마음과 관대한 동정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운이 솟았다.

나다니엘의 아버지(바돌로메오)가 오순절 직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이 사도는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떠났다. 그의 형제들은, 한 때 그들의 철학가요 시인이며 익살꾼이었던 그의 생사를 다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왕국의 일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비록 그가 나중에 생긴 그리스도교 교회의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主)의 가르침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많이 하였다. 나다니엘은 인도에서 죽었다.

excepting Judas Iscariot. Judas did not think Nathaniel took his apostleship sufficiently seriously and once had the temerity to go secretly to Jesus and lodge complaint against him. Said Jesus: “Judas, watch carefully your steps; do not overmagnify your office. Who of us is competent to judge his brother? It is not the Father’s will that his children should partake only of the serious things of life. Let me repeat: I have come that my brethren in the flesh may have joy, gladness, and life more abundantly. Go then, Judas, and do well that which has been intrusted to you but leave Nathaniel, your brother, to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And the memory of this, with that of many similar experiences, long lived in the self-deceiving heart of Judas Iscariot.

139:6.6 (1559.1) Many times, when Jesus was away on the mountain with Peter, James, and John, and things were becoming tense and tangled among the apostles, when even Andrew was in doubt about what to say to his disconsolate brethren, Nathaniel would relieve the tension by a bit of philosophy or a flash of humor; good humor, too.

139:6.7 (1559.2) Nathaniel’s duty was to look after the families of the twelve. He was often absent from the apostolic councils, for when he heard that sickness or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had happened to one of his charges, he lost no time in getting to that home. The twelve rested securely in the knowledge that their families’ welfare was safe in the hands of Nathaniel.

139:6.8 (1559.3) Nathaniel most revered Jesus for his tolerance. He never grew weary of contemplating the broadmindedness and generous sympathy of the Son of Man.

139:6.9 (1559.4) Nathaniel’s father (Bartholomew) died shortly after Pentecost, after which this apostle went into Mesopotamia and India proclaiming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His brethren never knew what became of their onetime philosopher, poet, and humorist. But he also was a great man in the kingdom and did much to spread his Master’s teachings, even though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f the subsequent Christian church. Nathaniel died in India.

제 7 장. 마태 레위

일곱 번째 사도인 마태는 안드레에 의해 선택되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집안에 속하기도 하였고 세리(稅吏)이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 관세 징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31세였고 결혼한 상태였으며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는, 사도 대원에 속해 있는 자로서는 유일하게 재산이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사교술

7. MATTHEW LEVI

139:7.1 (1559.5) Matthew, the seventh apostle, was chosen by Andrew. Matthew belonged to a family of tax gatherers, or publicans, but was himself a customs collector in Capernaum, where he lived. He was thirty-one years old and married and had four children. He was a man of moderate wealth, the only one of any means belonging to the apostolic corps. He was a good business man, a

이 좋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다.

안드레는 마태를 사도들의 재정 대표로 임명하였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조직체에 대한 회계 대리인이었고 홍보 대변인이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예리하게 판단하였고 매우 효과적인 선전원이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성의 사람이었지만, 매우 열성적인 제자였고, 예수의 사명과 왕국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갈수록 더 깊어진 사람이었다. 예수는 레위에게 별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 사도들은 흔히 그를 “돈을 거두는 자”라는 말로 칭하였다.

레위의 장점은 동기에 대한 전심(全心)으로의 헌신이었다. 세리인 자기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은, 이전에 세금 징수원의 편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 특히 시몬 켈로페와 가롯 유다가 자기들 안에 있는 세리의 현존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마태의 약점은 안목이 짧다는 것과 일생을 물질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는 세월이 가며 많은 진전을 보였다. 물론 그는 금고를 채우는 것이 그의 의무였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학습 시간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마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주(主)의 용서하는 기질이었다. 그는 신앙이란 단지 하느님을 찾는 사업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곤 하였다. 그는 왕국에 대해서 “하느님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하기를 항상 좋아하였다.

마태는 과거때문에 힘들어 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잘 이길 수 있었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의 연관-동료들도 세리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예수의 말들을 광범위하게 받아 적은 사도들 중의 하나로, 이 노트들은 나중에 이사도르가 기록한 예수의 말들과 행적들에 관한 서술문의 바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마태에 의한 복음서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사업가이며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이었던 마태의 위대하고 유용한 일생은, 수천 명의 다른 사업가들, 공공 관리들, 정치가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세대들까지, “나를 따르라”라는 주(主)의 말씀을 들으러 오도록 인도하는 매개자가 되었다. 마태는 실제로 명석한 정치가였지만, 예수께 지극히 충성스러웠고, 다가오는 왕국의 메신저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직무에 대단히 헌신하였다.

12사도들 가운데에 마태의 현존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이 이미 종교적 위안의 혜택이 없다고 여겨 왔던 기죽고 버림받은 혼들에게 무리들에게

good social mixer, and was gifted with the ability to make friends and to get along smoothly with a great variety of people.

139:7.2 (1559.6) Andrew appointed Matthew the financial representative of the apostles. In a way he was the fiscal agent and publicity spokesman for the apostolic organization. He was a keen judge of human nature and a very efficient propagandist. His is a personality difficult to visualize, but he was a very earnest disciple and an increasing believer in the mission of Jesus and in the certainty of the kingdom. Jesus never gave Levi a nickname, but his fellow apostles commonly referred to him as the “money-getter.”

139:7.3 (1559.7) Levi's strong point was his wholehearted devotion to the cause. That he, a publican, had been taken in by Jesus and his apostles was the cause for overwhelming gratitude on the part of the former revenue collector. However, it required some little time for the rest of the apostles, especially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to become reconciled to the publican's presence in their midst. Matthew's weakness was his shortsighted and materialistic viewpoint of life. But in all these matters he made great progress as the months went by. He, of course, had to be absent from many of the most precious seasons of instruction as it was his duty to keep the treasury replenished.

139:7.4 (1559.8) It was the Master's forgiving disposition which Matthew most appreciated. He would never cease to recount that faith only was necessary in the business of finding God. He always liked to speak of the kingdom as “this business of finding God.”

139:7.5 (1560.1) Though Matthew was a man with a past, he gave an excellent account of himself, and as time went on, his associates became proud of the publican's performances. He was one of the apostles who made extensive notes on the sayings of Jesus, and these notes were used as the basis of Isador's subsequent narrative of the sayings and doings of Jesus, which has become known a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139:7.6 (1560.2) The great and useful life of Matthew, the business man and customs collector of Capernaum, has been the means of leading thousands upon thousands of other business men,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down through the subsequent ages, also to hear that engaging voice of the Master saying, “Follow me.” Matthew really was a shrewd politician, but he was intensely loyal to Jesus and supremely devoted to the task of seeing that the messengers of the coming kingdom were adequately financed.

139:7.7 (1560.3) The presence of Matthew among the twelve was the means of keeping the doors of the kingdom wide open to hosts of downhearted and

왕국의 문을 넓게 열어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다.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남녀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으며,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마태는 신도들과 주(主)의 가르침을 방금 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헌납을 자유롭게 받아 들였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군중들로부터 기금을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일을 조용하고 개인적 방법으로 해나갔고, 대부분의 돈을 관심을 가진 신도들 중에서 좀 더 유복한 등급으로부터 건넸다. 그는 실천적으로 주(主)와 그의 사도들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전체를 썼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그의 이러한 관대함을 알지 못하였다. 마태는 예수와 사도들이 어쩌면 자기 돈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까봐 두려워서 사도들의 기금으로 공공연하게 헌납하지 못하였다; 다른 신도들의 이름을 빌려 많이 기부하였다. 초기 시절에, 마태는 그들 속에서 자신의 헌존이 다소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종종 그들의 일용 양식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유혹에 굴복되지 않았다. 세리에 대한 경멸의 증거들이 현시될 때는, 레위는 그들에게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열망으로 타올랐으나, 그는 항상 조용히 있도록 자신을 잘 다스렸다.

한 주간 동안의 기금이 예산보다 모자랐을 때, 레위는 자주 자기 개인 재산에서 많이 빼서 쓰곤 하였다. 또한 가끔씩,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필요한 기금이 건히지 않아서 자기가 대신 개인적으로 그 기금을 충당해야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남아 있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레위는 많은 돈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는, 주(主)께서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였다. 박해가 시작된 후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마태에게는 실천적으로 동전 한 닢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가 그들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다.

이러한 박해들로 인하여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태는 왕국의 복음을 설교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북쪽으로 여행하였다. 그는 예전의 사도 연관-동료들과 소식이 끊어졌지만, 설교하고 세례를 주면서 시리아, 카파도치아, 갈라시아, 비티니아, 트레스를 지나갔다. 리시마키아에 있는 트레스에서는, 어떤 비(非)신자인 유대인이 로마 병정과 결탁하여 그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세리는, 얼마 전에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신 주(主)의 가르침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운 구원의 신앙 안에서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outcast souls who had regarded themselves as long since without the bounds of religious consolation. Outcast and despairing men and women flocked to hear Jesus, and he never turned one away.

139:7.8 (1560.4) Matthew received freely tendered offerings from believing disciples and the immediate auditors of the Master's teachings, but he never openly solicited funds from the multitudes. He did all his financial work in a quiet and personal way and raised most of the money among the more substantial class of interested believers. He gave practically the whole of his modest fortune to the work of the Master and his apostles, but they never knew of this generosity, save Jesus, who knew all about it. Matthew hesitated openly to contribute to the apostolic funds for fear that Jesus and his associates might regard his money as being tainted; so he gave much in the names of other believers. During the earlier months, when Matthew knew his presence among them was more or less of a trial, he was strongly tempted to let them know that his funds often supplied them with their daily bread, but he did not yield. When evidence of the disdain of the publican would become manifest, Levi would burn to reveal to them his generosity, but always he managed to keep still.

139:7.9 (1560.5) When the funds for the week were short of the estimated requirements, Levi would often draw heavily upon his own personal resources. Also, sometimes when he became greatly interested in Jesus' teaching, he preferred to remain and hear the instruction, even though he knew he must personally make up for his failure to solicit the necessary funds. But Levi did so wish that Jesus might know that much of the money came from his pocket! He little realized that the Master knew all about it. The apostles all died without knowing that Matthew was their benefactor to such an extent that, when he went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fter the beginning of the persecutions, he was practically penniless.

139:7.10 (1560.6) When these persecutions caused the believers to forsake Jerusalem, Matthew journeyed north,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He was lost to the knowledge of his former apostolic associates, but on he went, preaching and baptizing, through Syria, Cappadocia, Galatia, Bithynia, and Thrace. And it was in Thrace, at Lysimachia, that certain unbelieving Jews conspired with the Roman soldiers to encompass his death. And this regenerated publican died triumphant in the faith of a salvation he had so surely learned from the teachings of the Master during his recent sojourn on earth.

제 8 장. 도마 디디머스

도마는 여덟 번째 사도였고, 빌립에 의해 선택되었다. 후반기에 그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알려지게 되었지만, 동료 사도들은 그를 상습적으로 의심하는 자라고는 거의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소유하였지만, 그의 용기 있는 충성심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어리석은 회의론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

도마가 사도들 중의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29세였고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는 전에는 목수와 석공의 일을 했었으나, 나중에는 어부의 일을 하며 타리케아에서 거주하였는데, 그곳은 갈릴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영도하는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는 교육은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예리하고 이성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티베리아스에서 사는 훌륭한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도마는 12사도들 중에서 진정으로 분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도 그룹 중에서 실제 과학자였다.

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였다;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에서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어른에 대한 도마의 체험에 반영되었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을 가지면서 자라났다.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사도들에게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판적인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서, 자기 형인 안드레에게, 도마는 “모질고, 못생겼으, 항상 의심만 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연관-동료들은 도마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를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매우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완전하게 진지하였으며, 물을 필요도 없이 참되었다, 하지만 본성적-태생이 흠잡는 사람이었으며, 자라면서 실제 비판론자가 되었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의심으로 저주 받은 듯 했었다. 그가 12사도들과 관계적-연합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연관-동료 사람들에게서 순식간에 신뢰를 잃어갔고, 따라서 예수의 고상한 성격과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주(主)와의 이런 관계는 바로 도마의 모든 기질을 변환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연관-동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도마의 큰 장점은 그의 굉장한 분석적 마음을 굽힐 줄 모르는 용기—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에는—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남을 신용하지 않는 의심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에는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12사도의 조직 안에서 도마는 여행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사도 대원들의

8. THOMAS DIDYMUS

139:8.1 (1561.1) Thomas was the eighth apostle, and he was chosen by Philip. In later times he has become known as “doubting Thomas,” but his fellow apostles hardly looked upon him as a chronic doubter. True, his was a logical, skeptical type of mind, but he had a form of courageous loyalty which forbade those who knew him intimately to regard him as a trifling skeptic.

139:8.2 (1561.2) When Thomas joined the apostles, he was twenty-nine years old, was married, and had four children. Formerly he had been a carpenter and stone mason, but latterly he had become a fisherman and resided at Tarichea, situated on the west bank of the Jordan where it flows out of the Sea of Galilee, and he was regarded as the leading citizen of this little village. He had little education, but he possessed a keen, reasoning mind and was the son of excellent parents, who lived at Tiberias. Thomas had the one truly analytical mind of the twelve; he was the real scientist of the apostolic group.

139:8.3 (1561.3) The early home life of Thomas had been unfortunate; his parents were not altogether happy in their married life, and this was reflected in Thomas's adult experience. He grew up having a very disagreeable and quarrelsome disposition. Even his wife was glad to see him join the apostles; she was relieved by the thought that her pessimistic husband would be away from home most of the time. Thomas also had a streak of suspicion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to get along peaceably with him. Peter was very much upset by Thomas at first, complaining to his brother, Andrew, that Thomas was “mean, ugly, and always suspicious.” But the better his associates knew Thomas, the more they liked him. They found he was superbly honest and unflinchingly loyal. He was perfectly sincere and unquestionably truthful, but he was a natural-born faultfinder and had grown up to become a real pessimist. His analytical mind had become cursed with suspicion. He was rapidly losing faith in his fellow men when he became associated with the twelve and thus came in contact with the noble character of Jesus. This association with the Master began at once to transform Thomas's whole disposition and to effect great changes in his mental reactions to his fellow men.

139:8.4 (1561.4) Thomas's great strength was his superb analytical mind coupled with his unflinching courage — when he had once made up his mind. His great weakness was his suspicious doubting, which he never fully overcame throughout his whole lifetime in the flesh.

139:8.5 (1561.5) In the organization of the twelve Thomas was assigned to arrange and manage the itinerary, and he was an able director of the work

일과 움직임들에 대한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자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에 의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와 사도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병적인 내면-성찰이 많이 치료되었다.

예수는 도마와 매우 많이 즐기었고, 그와 여러 번 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도들 가운데서 그의 현존은, 모든 정직한 의심품은 자들에게 큰 위안이었고, 많은 고민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에서의 영적 그리고 철학적 위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해도,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주었다. 12사도 안에 도마의 회원관계가 끼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정직하게 의심만 하는 자들도 사랑했다는 뚜렷한 선언이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충만한 개인성의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특색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지만, 도마는 비할 바 없이 균형을 갖춘 주(主)의 성격 때문에 그를 존경하였다. 도마는, 그렇게 정당하게 자비스러우면서도 또한 확고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그렇게 엄하면서도 절대로 완고하지 않은; 그렇게 잔잔하면서도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동정적이면서도 절대로 참견하거나 권위적이지 아닌; 그렇게 강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절대로 궁정적이면서도 절대로 격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않은;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깨끗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렇게 진정으로 용기가 있으면서도 절대로 성급하거나 무모하지 않은;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경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그렇게 익살스럽고 그렇게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경망스럽거나 천박하지 않은 예수를 점점 더 존경하였고 받들었다. 이렇게 비할 데 없는 균형 잡힌 개인성에 도마는 그토록 매료되었다. 그는 아마도 12명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예수에 대한 최고의 지적 납득과 개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즐긴 것 같다.

12사도 회의회에서 도마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안전 제일 정책을 내세웠지만, 만약에 그의 보수적 의견이 부결되거나 퇴짜를 맞으면, 결정된 계획의 실행에 그가 항상 제일 먼저 두려움 없이 뛰어 들었다. 그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무모하고 외람된 것으로 여기면 반대하고 또 반대하곤 하였다; 격렬한 가운데 끝날 때까지 논쟁을 하곤 하였지만, 안드레가 그 제안을 투표에 붙여서 12사도들이 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였던 안전을 통과시키고 나면, 도마가 제일 먼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훌륭한 실패자였다. 그는 불평을 붙잡고 있거나 상처받은 감정도 품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여러 번 반대하였지만, 주(主)께서 그러한 모험을 택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동지들, 어서 갑시다. 우리 함께 가서 주(主)와 함께 목숨을 바칩시다.”라는 용기 있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사도들을 집결시키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and movements of the apostolic corps. He was a good executive, an excellent businessman, but he was handicapped by his many moods; he was one man one day and another man the next. He was inclined toward melancholic brooding when he joined the apostles, but contact with Jesus and the apostles largely cured him of this morbid introspection.

139:8.6 (1561.6) Jesus enjoyed Thomas very much and had many long, personal talks with him. His presence among the apostles was a great comfort to all honest doubters and encouraged many troubled minds to come into the kingdom, even if they could not wholly understand everything about the spiritual and philosophic phases of the teachings of Jesus. Thomas's membership in the twelve was a standing declaration that Jesus loved even honest doubters.

139:8.7 (1562.1) The other apostles held Jesus in reverence because of some special and outstanding trait of his replete personality, but Thomas revered his Master because of his superbly balanced character. Increasingly Thomas admired and honored one who was so lovingly merciful yet so inflexibly just and fair; so firm but never obstinate; so calm but never indifferent; so helpful and so sympathetic but never meddlesome or dictatorial; so strong but at the same time so gentle; so positive but never rough or rude; so tender but never vacillating; so pure and innocent but at the same time so virile, aggressive, and forceful; so truly courageous but never rash or foolhardy; such a lover of nature but so free from all tendency to revere nature; so humorous and so playful, but so free from levity and frivolity. It was this matchless symmetry of personality that so charmed Thomas. He probably enjoyed the highest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personality appreciation of Jesus of any of the twelve.

139:8.8 (1562.2) In the councils of the twelve Thomas was always cautious, advocating a policy of safety first, but if his conservatism was voted down or overruled, he was always the first fearlessly to move out in execution of the program decided upon. Again and again would he stand out against some project as being foolhardy and presumptuous; he would debate to the bitter end, but when Andrew would put the proposition to a vote, and after the twelve would elect to do that which he had so strenuously opposed, Thomas was the first to say, “Let's go!” He was a good loser. He did not hold grudges nor nurse wounded feelings. Time and again did he oppose letting Jesus expose himself to danger, but when the Master would decide to take such risks, always was it Thomas who rallied the apostles with his courageous words, “Come on, comrades, let's go and die with him.”

도마는 어떤 면에서는 빌립과 비슷하였다; 그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였지만, 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표현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적인 작용들에 기반을 둔 것들이었다. 도마는 단순하게 회의적(懷疑的)이 아닌,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적 육체적 용기에 관한 한, 12사도들 중에서 그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도마는 매우 힘든 날들을 어느 정도 겪었는데; 그는 종종 우울하였고 풀이 죽어 있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잃은 것이 어린 시절에 많은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후반기의 일생의 변덕스러운 성격적 문제들에 부가되었다. 도마가 풀이 죽게 되면, 어떤 때에는 나다니엘이, 어떤 때는 베드로가, 그리고 알페오의 쌍둥이 중의 하나가,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자주 도움을 주었다. 그가 가장 억눌렸을 때,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항상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셨고, 의심들로 인해 그가 그런 식으로 억압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 사도를 위해 납득하는 동정심을 가지셨다.

이따금씩 도마는 하루나 이틀 동안 혼자 떠나 있을 수 있도록 안드로로부터 허락을 받은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방식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았다; 그가 낙심하였을 때는 일을 하면서 연관-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며 남아 있는 일이 상책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의 감성적인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지 간에, 그는 사도로 항상 남아 있었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오면,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도마는 의심을 품고, 그것들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큰 본보기였다. 그는 마음이 넓었다; 트집을 잡는 비평가가 아니었다. 그는 논리적인 사고자였으며;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 사도들에 대하여 엄밀하게 시험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약 예수와 그의 일이 참된 것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완결까지 도마 같은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예리하고 확실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기나 속임수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도마는 처음 순간에 그들 전부를 버렸을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예수와 땅에서의 그의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과학자적 마음을 가진 한 사람—도마 디디머스—이 주(主)와 그의 인간 측근 동료들과 함께 살았고 일을 하였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

도마는 심판과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다. 그는 한동안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용기를 다시 찾아서 사도들과 합하였고 갈릴리 해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는 의심으로 인한 억눌림에 한동안 굴복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신앙과 용기를 다시 찾았다. 그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하였으며, 박해로 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그는 왕국의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키프로스, 크레테, 북아프리카 해안, 시실리로 갔다. 그리고 도

139:8.9 (1562.3) Thomas was in some respects like Philip; he also wanted “to be shown,” but his outward expressions of doubt were based on entirely different intellectual operations. Thomas was analytical, not merely skeptical. As far as personal physical courage was concerned, he was one of the bravest among the twelve.

139:8.10 (1562.4) Thomas had some very bad days; he was blue and downcast at times. The loss of his twin sister when he was nine years old had occasioned him much youthful sorrow and had added to his temperamental problems of later life. When Thomas would become despondent, sometimes it was Nathaniel who helped him to recover, sometimes Peter, and not infrequently one of the Alpheus twins. When he was most depressed, unfortunately he always tried to avoid coming in direct contact with Jesus. But the Master knew all about this and had an understanding sympathy for his apostle when he was thus afflicted with depression and harassed by doubts.

139:8.11 (1562.5) Sometimes Thomas would get permission from Andrew to go off by himself for a day or two. But he soon learned that such a course was not wise; he early found that it was best, when he was downhearted, to stick close to his work and to remain near his associates. But no matter what happened in his emotional life, he kept right on being an apostle. When the time actually came to move forward, it was always Thomas who said, “Let’s go!”

139:8.12 (1562.6) Thomas is the great example of a human being who has doubts, faces them, and wins. He had a great mind; he was no carping critic. He was a logical thinker; he was the acid test of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If Jesus and his work had not been genuine, it could not have held a man like Thomas from the start to the finish. He had a keen and sure sense of *fact*. At the first appearance of fraud or deception Thomas would have forsaken them all. Scientists may not fully understand all about Jesus and his work on earth, but there lived and worked with the Master and his human associates a man whose mind was that of a true scientist — Thomas Didymus — and he believed in Jesus of Nazareth.

139:8.13 (1563.1) Thomas had a trying time during the day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He was for a season in the depths of despair, but he rallied his courage, stuck to the apostles, and was present with them to welcome Jesus on the Sea of Galilee. For a while he succumbed to his doubting depression but eventually rallied his faith and courage. He gave wise counsel to the apostles after Pentecost and, when persecution scattered the believers, went to Cyprus, Crete, the North African coast, and Sicily, preaching the glad

마는 로마 정부의 관리에 의해 체포되어 말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설교와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가 죽기 불과 몇 주일 전에 그는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었다.

tidings of the kingdom and baptizing believers. And Thomas continued preaching and baptizing until he was apprehended by the agents of the Roman government and was put to death in Malta. Just a few weeks before his death he had begun the writing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제 9-10 장. 야고보와 유다 알페오

게라사 가까이에서 사는 쌍둥이 어부들인, 알페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9번째와 10번째의 사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들은 26세였고 결혼을 했으며, 야고보는 3명의 자녀들을, 유다는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이들 두 평범한 어부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들은 주(主)를 사랑하였으며 주(主)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그의 강연을 중단시키는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동료 사도들의 철학적 토의나 혹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 거의 납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 사이에 끼여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향유하였다. 이들 두 사람들은 겉모습에서나, 정신적 특징에서나, 영적 인식의 정도에서 서로 거의 동일하였다. 한 사람을 묘사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안드레는 그들에게 군중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설교 시간에 안내원들의 우두머리들이었으며, 사실상으로 12사도들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빌립의 물자공급으로 도왔고, 나다니엘을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항상 사도들의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었다.

보통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중들은, 그들과 똑같은 두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끼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용기를 얻었다. 이들 평범한 쌍둥이들이 사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겹쟁이 신도들을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자신들과 아주 비슷한 공식 안내원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관리되어진다는 관념에 더욱 친근감을 가졌다.

또한 다대오와 레비우스라고도 불렸던 야고보와 유다는 강점은 물론 약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은 평범하다는 것을 뜻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들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는데;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사실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야고보 알페오는 주(主)의 단순함을 특별히 사랑하였다. 이들 쌍둥이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 자신들과 주(主)의 가슴 사이에 동정심 가득한 끈으로 묶여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높은 차원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을 담아서 말한다 해도, 우둔하다고

9 AND 10. JAMES AND JUDAS ALPHEUS

139:9.1 (1563.2) James and Judas the sons of Alpheus, the twin fishermen living near Kheresa, were the ninth and tenth apostles and were chosen by James and John Zebedee. They were twenty-six years old and married, James having three children, Judas two.

139:9.2 (1563.3) There is not much to be said about these two commonplace fisherfolk. They loved their Master and Jesus loved them, but they never interrupted his discourses with questions. They understood very little about the philosophical discussions or the theological debates of their fellow apostles, but they rejoiced to find themselves numbered among such a group of mighty men. These two men were almost identical in personal appearance, mental characteristics, and extent of spiritual perception. What may be said of one should be recorded of the other.

139:9.3 (1563.4) Andrew assigned them to the work of policing the multitudes. They were the chief ushers of the preaching hours and, in fact, the general servants and errand boys of the twelve. They helped Philip with the supplies, they carried money to the families for Nathaniel, and always were they ready to lend a helping hand to any one of the apostles.

139:9.4 (1563.5) The multitudes of the common people were greatly encouraged to find two like themselves honored with places among the apostles. By their very acceptance as apostles these mediocre twins were the means of bringing a host of fainthearted believers into the kingdom. And, too, the common people took more kindly to the idea of being directed and managed by official ushers who were very much like themselves.

139:9.5 (1563.6) James and Judas, who were also called Thaddeus and Lebbeus, had neither strong points nor weak points. The nicknames given them by the disciples were good-natured designations of mediocrity. They were “the least of all the apostles”; they knew it and felt cheerful about it.

139:9.6 (1563.7) James Alpheus especially loved Jesus because of the Master's simplicity. These twins could not comprehend the mind of Jesus, but they did grasp the sympathetic bond between themselves and the heart of their Master. Their minds were not of a high order; they might even

볼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본성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왕국의 동료들이었다.

유다 알페오는 주(主)의 허식 없는 겸손으로 인하여 예수에게 끌렸다. 그러한 개인적 위엄을 동반한 그러한 겸손은 유다에게 큰 매력을 주었다. 예수가 자신의 비범한 행동들에 관해서 항상 침묵을 지키는 사실은, 이 단순한 자연적 자녀들에게 크나 큰 감명을 주었다.

쌍둥이들은 성격이 좋았으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조력자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예수는 재주가 한 가지뿐인 이 젊은이들을 왕국에서의 그의 측근동료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받아 들였는데, 왜냐하면 공간 세계들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단순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혼들이 있고, 그들을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가 퍼부어 주는 진리의 영광 자신과 함께 하는, 활동적이고 믿음을 가지는 동료관계 안에서 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보잘것없는 것을 경멸하지 않았으며, 단지 악과 죄를 경멸하였다. 야고보와 유다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신실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무지하였지만, 또 한 편으로는 도량이 넓었고, 친절하였으며, 관대하였다.

어떤 한 부자가 전도자(前導者)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였을 때, 그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한에는 받아 줄 수 없다고 주(主)가 그를 거절하였던 날,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예수의 조인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신성한 제도—하늘의 왕국—만이 그러한 평범한 인간 기반 위에 언제나 설립되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적-연합에서 단지 한두 번 공개적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했었다. 주(主)께서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한 번 예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12명 사이의 그들만의 비밀이 없어진다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되어 그는 이렇게 대답하게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당신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표하시면, 우리에게는 당신의 선함에 대한 특별한 현시활동을 어떤 식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그 쌍둥이들은 끝까지,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어두운 날들까지, 그리고 절망에서까지도 성실히 봉사하였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한 번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은(요한을 제외하고) 그의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다. 그들의 주(主)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 그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왕국의 전투에서 버티며 나아가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우주를 통치하는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과 4년 동안을 가깝고도 개인적 관계적-연합을 이룬 명예와 축복을 받았음을 의식하며 살다가 죽었다.

reverently be called stupid, but they had a real experience in their spiritual natures. They believed in Jesus; they were sons of God and fellows of the kingdom.

139:9.7 (1564.1) Judas Alpheus was drawn toward Jesus because of the Master's unostentatious humility. Such humility linked with such personal dignity made a great appeal to Judas. The fact that Jesus would always enjoin silence regarding his unusual acts made a great impression on this simple child of nature.

139:9.8 (1564.2) The twins were good-natured, simple-minded helpers, and everybody loved them. Jesus welcomed these young men of one talent to positions of honor on his personal staff in the kingdom because there are untold millions of other such simple and fear-ridden souls on the worlds of space whom he likewise wishes to welcome into active and believing fellowship with himself and his outpoured Spirit of Truth. Jesus does not look down upon littleness, only upon evil and sin. James and Judas were *little*, but they were also *faithful*. They were simple and ignorant, but they were also big-hearted, kind, and generous.

139:9.9 (1564.3) And how gratefully proud were these humble men on that day when the Master refused to accept a certain rich man as an evangelist unless he would sell his goods and help the poor. When the people heard this and beheld the twins among his counselors, they knew of a certainty that Jesus was no respecter of persons. But only a divine institution — the kingdom of heaven — could ever have been built upon such a mediocre human foundation!

139:9.10 (1564.4) Only once or twice in all their association with Jesus did the twins venture to ask questions in public. Judas was once intrigued into asking Jesus a question when the Master had talked about revealing himself openly to the world. He felt a little disappointed that there were to be no more secrets among the twelve, and he made bold to ask: “But, Master, when you do thus declare yourself to the world, how will you favor us with special manifestations of your goodness?”

139:9.11 (1564.5) The twins served faithfully until the end, until the dark days of trial, crucifixion, and despair. They never lost their heart faith in Jesus, and (save John) they were the first to believe in his resurrection.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Soon after their Master was crucified, they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nets; their work was done. They had not the ability to go on in the more complex battles of the kingdom. But they lived and died conscious of having been honored and blessed with four years of close and personal association with a Son of God, the sovereign maker of a universe.

제 11 장. 열심당원 시몬

시몬 켈로페는 11번째 사도로, 시몬 베드로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훌륭한 조상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버나움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사도가 되었을 때 28세였다. 그는 격렬한 선동가였으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심당이라는 애국적 조직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기 전까지는 상인으로 일했었다.

시몬 켈로페는 사도 집단의 기본전환과 이완-휴식을 담당하였으며, 12사도들의 운동 생활과 오락 활동들에 대한 매우 효율적인 조직가였다.

시몬의 강점은 그의 영감(靈感) 어린 충성심이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하면, 시몬을 부르곤 하였다. 모든 의심들을 해결하고, 모든 망설임을 없애고, 새로운 혼이 “믿음으로 인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느님의 신앙을 통한 구원의 이 열성적인 주창자에게는, 대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몬의 큰 약점은 그의 굳어버린 물질적 마음에 있었다. 그는 유대의 민족주의자로부터 영적 마음을 가진 국제주의자로 자신을 빨리 전환시킬 수 없었다. 4년의 기간은, 그러한 지적이고 감정적인 변환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시몬이 예수를 그토록 탄복한 한 가지는 주(主)의 고요함, 그의 확신, 평정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착성이었다.

비록 시몬이 과격한 혁명론자였고, 동요를 일으키는 두려움 없는 선동자이기는 했었지만, 그가 “땅에서의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외치는 강력하고 효력적인 설교자로 되기까지, 그는 차차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완화시켜 나갔다. 시몬은 굉장한 토론가였으며; 논쟁하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리고 법적인 마음을 가진 학식이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지적인 궤변의 그리스인들과 상대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러한 임무는 항상 시몬이 맡았다.

그는 본성적으로 반항자였고, 훈련에 의한 인습을 타파하는 주창자였지만, 예수는 그를 하늘의 왕국의 좀 더 높은 개념들로 끌어 올려 주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항의의 집단으로 정체성을 확인하였었지만, 이제는 영과 진리의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진보, 그 진보의 집단으로 합쳤다. 시몬은 강한 충성심과 따뜻한 개인적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아주 깊이 사랑하였다.

예수는 사업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낙관론자, 비관론자, 철학자들, 회의론자, 세리들,

11. SIMON THE ZEALOT

139:11.1 (1564.6) Simon Zelotes, the eleventh apostle, was chosen by Simon Peter. He was an able man of good ancestry and lived with his family at Capernaum. He was twenty-eight years old when he became attached to the apostles. He was a fiery agitator and was also a man who spoke much without thinking. He had been a merchant in Capernaum before he turned his entire attention to the patriotic organization of the Zealots.

139:11.2 (1564.7) Simon Zelotes was given charge of the diversions and relaxation of the apostolic group, and he was a very efficient organizer of the play life and recreational activities of the twelve.

139:11.3 (1564.8) Simon's strength was his inspirational loyalty. When the apostles found a man or woman who floundered in indecision about entering the kingdom, they would send for Simon. It usually required only about fifteen minutes for this enthusiastic advocat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n God to settle all doubts and remove all indecision, to see a new soul born into the “liberty of faith and the joy of salvation.”

139:11.4 (1565.1) Simon's great weakness was his material-mindedness. He could not quickly change himself from a Jewish nationalist to a spiritually minded internationalist. Four years was too short a time in which to make such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transformation, but Jesus was always patient with him.

139:11.5 (1565.2) The one thing about Jesus which Simon so much admired was the Master's calmness, his assurance, poise, and inexplicable composure.

139:11.6 (1565.3) Although Simon was a rabid revolutionist, a fearless firebrand of agitation, he gradually subdued his fiery nature until he became a powerful and effective preacher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Simon was a great debater; he did like to argue. And when it came to dealing with the legalistic minds of the educated Jews or the intellectual quibblings of the Greeks, the task was always assigned to Simon.

139:11.7 (1565.4) He was a rebel by nature and an iconoclast by training, but Jesus won him for the higher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had always identified himself with the party of protest, but he now joined the party of progress, unlimited and eternal progression of spirit and truth. Simon was a man of intense loyalties and warm personal devotions, and he did profoundly love Jesus.

139:11.8 (1565.5) Jesus was not afraid to identify himself with business men, laboring men,

정치가들, 애국자들과 함께 그 자신을 정체성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主)는 시몬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를 국제주의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시몬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계층을 개선시키고 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자주 말씀해주었지만,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것은 하늘의 왕국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봉헌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정부의 대사가 되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에 관한 당면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신임장을 가진 우리가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의 뜻과 성격을 대표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아야 한다.” 시몬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주(主)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점차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139:11.10]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분산된 후에, 시몬은 일시적인 은퇴기간을 가졌다. 그는 문자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민족주의적인 애국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좇는 일을 포기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으나, 몇 년 안에 그는 자신의 소망들을 다시 찾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앞으로 나아갔다.

[139:11.11]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며 일을 한 후,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제 12 장.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12번째 사도로서, 나다니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남부 유대에 있는 작은 도시인 가롯에서 태어났다.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여리고로 이사를 갔고, 그가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일에 흥미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곳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하였다. 유다의 부모는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이 요한의 제자로 참가하자, 그를 가족에서 쫓아내 버렸다.

나다니엘이 유다를 타리케아에서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해의 하류 끝에 있는 생선-건조 사업체에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30세였고 결혼 전이었다. 그는 아마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을 것이며, 주(主)의 사도 대원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 사람이었다. 유다는 개인적 강점을 나타내는 아무런 특출한 특색이 없었지만, 겉으로 나타나도록 많은 교양에서의 특색과 그리고 훈련에서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사고자(思考者)였지만, 언제나 진정으로 정직한 사고자는 아니었다. 유다는 자신을 실제로 납득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제로 진지하지 않았다.

optimists, pessimists, philosophers, skeptics, publicans, politicians, and patriots.

139:11.9 (1565.6) The Master had many talks with Simon, but he never fully succeeded in making an internationalist out of this ardent Jewish nationalist. Jesus often told Simon that it was proper to want to se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s improved, but he would always add: “That is not the busines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be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Our business is to be ambassadors of a spiritual government on high, and we must not immediately concern ourselves with aught but the representation of the will and character of the divine Father who stands at the head of the government whose credentials we bear.” It was all difficult for Simon to comprehend, but gradually he began to grasp something of the meaning of the Master’s teaching.

139:11.10 (1565.7) After the dispersion because of the Jerusalem persecutions, Simon went into temporary retirement. He was literally crushed. As a nationalist patriot he had surrendered in deference to Jesus’ teachings; now all was lost. He was in despair, but in a few years he rallied his hopes and went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139:11.11 (1565.8) He went to Alexandria and, after working up the Nile, penetrated into the heart of Africa, everywhere preaching the gospel of Jesus and baptizing believers. Thus he labored until he was an old man and feeble. And he died and was buried in the heart of Africa.

12. JUDAS ISCARIOT

139:12.1 (1565.9) Judas Iscariot, the twelfth apostle, was chosen by Nathaniel. He was born in Kerioth, a small town in southern Judea. When he was a lad, his parents moved to Jericho, where he lived and had been employed in his father’s various business enterprises until he became interested in the preaching and work of John the Baptist. Judas’s parents were Sadducees, and when their son joined John’s disciples, they disowned him.

139:12.2 (1566.1) When Nathaniel met Judas at Tarichea, he was seeking employment with a fish-drying enterprise at the lower end of the Sea of Galilee. He was thirty years of age and unmarried when he joined the apostles. He was probably the best-educated man among the twelve and the only Judean in the Master’s apostolic family. Judas had no outstanding trait of personal strength, though he had many outwardly appearing traits of culture and habits of training. He was a good thinker but not always a truly *honest* thinker. Judas did not really understand himself; he was not really sincere in dealing with himself.

안드레는 유다를 12사도의 회계로 임명하였는데, 그 지위는 그에게 매우 어울리는 자리였고, 그가 주(主)를 배반하기 전 시간까지는 자기 책임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고 절묘하게 매력적인 주(主)의 성격 이외에, 특별히 유다가 예수를 탄복했던 특색은 없었다. 유다는 결코 갈릴리인 들인 연관-동료들에 대한 자신의 유대 사람으로서의 편견을 넘어서지 수 없었다; 예수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속으로 비판하였다. 11명의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던 완전한 사람인 그를, 자아-만족이 가득한 이 유대 사람은 그의 진심에서 감히 자주 비판하였다. 실제로 그는, 예수에 대하여 수줍고 자기 자신의 힘과 권한을 주장하기를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훌륭한 사업가였다. 몇몇 사도들의 허둥지둥하는 사업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라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의 재정관련사를 관리하는 데에는 재치와 힘 그리고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유다는 앞을 멀리 내다보는 유능한 재정가로서, 실제로 훌륭한 집행자였다. 그리고 그는 조직에 대하여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12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유다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한에서는, 가룟 유다는 비길 데 없는 회계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가끔씩 비판적이긴 했어도) 사도였으며,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은 유다를 사랑하였다; 그는 실제로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가 온 가슴을 다 바쳐 실제로 주(主)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 유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옳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죄와 사망의 길들에 이르도록 유쾌하게 조절하는 평화스러운 속임수에 희생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유다는 항상 재정적으로 자기 주(主)와 동료들에게 충실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돈이 원인이 되어 그가 주(主)를 배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유다는 현명하지 못한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아주 어린 때부터, 그에게 지나친 풍요로움을 주었고, 그의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그는 버릇없는 아이였다. 그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자아-중요에 대한 관념이 더욱 깊어져 갔다. 그는 불쌍한 실패자였다. 그는 공정함에 대하여 산만하고 왜곡된 관념들을 가졌으며; 미움과 의심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의 언행(言行)을 오해하는데 있어서 숙련자였다. 유다는 자기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하는 습관을 길러 갔다. 그의 가치관들과 충성심의 의식에 결함이 있었다.

예수에게 있어서 유다는 신앙에 대한 모험이었다. 처음부터 주(主)는 이 사도의 약점을 납득하고 계셨으며, 그를 동료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

139:12.3 (1566.2) Andrew appointed Judas treasurer of the twelve, a position which he was eminently fitted to hold, and up to the time of the betrayal of his Master he discharged the responsibilities of his office honestly, faithfully, and most efficiently.

139:12.4 (1566.3) There was no special trait about Jesus which Judas admired above the generally attractive and exquisitely charming personality of the Master. Judas was never able to rise above his Judean prejudices against his Galilean associates; he would even criticize in his mind many things about Jesus. Him whom eleven of the apostles looked upon as the perfect man, as the “one altogether lovely and the chiefest among ten thousand,” this self-satisfied Judean often dared to criticize in his own heart. He really entertained the notion that Jesus was timid and somewhat afraid to assert his own power and authority.

139:12.5 (1566.4) Judas was a good business man. It required tact, ability, and patience, as well as painstaking devotion, to manage the financial affairs of such an idealist as Jesus, to say nothing of wrestling with the helter-skelter business methods of some of his apostles. Judas really was a great executive, a farseeing and able financier. And he was a stickler for organization. None of the twelve ever criticized Judas. As far as they could see, Judas Iscariot was a matchless treasurer, a learned man, a loyal (though sometimes critical) apostle, and in every sense of the word a great success. The apostles loved Judas; he was really one of them. He must have *believed* in Jesus, but we doubt whether he really *loved* the Master with a whole heart. The case of Judas illustrates the truthfulness of that saying: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the end thereof is death.” It is altogether possible to fall victim to the peaceful deception of pleasant adjustment to the paths of sin and death. Be assured that Judas was always financially loyal to his Master and his fellow apostles. Money could never have been the motive for his betrayal of the Master.

139:12.6 (1566.5) Judas was an only son of unwise parents. When very young, he was pampered and petted; he was a spoiled child. As he grew up, he had exaggerated ideas about his self-importance. He was a poor loser. He had loose and distorted ideas about fairness; he was given to the indulgence of hate and suspicion. He was an expert at misinterpretation of the words and acts of his friends. All through his life Judas had cultivated the habit of getting even with those whom he fancied had mistreated him. His sense of values and loyalties was defective.

139:12.7 (1566.6) To Jesus, Judas was a faith adventure. From the beginning the Master fully understood the weakness of this apostle and well knew the dangers of admitting him to fellowship.

들의 본성은, 모든 창조된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존의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하여 창조체가 제공하는 헌신이 진지하고 전심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간들의 심판자는 의심스러운 그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실천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필사자들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세상들에서 주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는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신앙 이외에는 어떤 제약들도, 분별된-자격들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유다로 하여금 끝까지 계속 나가도록 허용했으며, 이 약하고 혼동하는 사도를 변환시키고 구하려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항상 다하고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빛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빛은 혼 안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유다가 지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다른 사도들처럼 영적 특성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영적 체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개인적 발전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

유다의 개인적 실망은 점점 더 커갔으며, 결국에는 분개심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의 감정들은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주(主)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의심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그것이 비록 주(主)를 배반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복수를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관념에 사로잡혔다.

[139:12.10] 그러나 이러한 사악하고 위험한 관념들은, 감사하는 가슴으로 가득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아래 값진 향료를 부어 주기 전까지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유다에게는 그런 행동이 낭비로 여겨졌으며, 자신의 공개적인 반론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에 의해 묵살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었다. 그 사건은 축적되어 왔던 미움, 상처, 원한, 편견, 질투, 평생의 복수의 실천을 결정짓게 하였고, 그는 누구에게 인지는 모르지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불행한 일생의 비열한 드라마에서 그의 모든 악의 본성이 가장 죄가 없는 한 사람에게로 맞추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진보적인 빛의 왕국으로부터 본인이 자아-선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에피소드에서 예수가 주연(主演)의 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39:12.11] 주(主)는 사적으로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그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신성한 경고들은 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대개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는 유다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도덕적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였다. 큰 시험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분개심의 아들은 실패하였다; 과장되어진 자아-중요시의 비열한 거만함과 복수심에 찬 마음의 비열한 명령에 굴복해서, 빠른 속

But it is the nature of the Sons of God to give every created being a full and equal chance for salvation and survival. Jesus wanted not only the mortals of this world but the onlookers of innumerable other worlds to know that, when doubts exist as to the sincerity and wholeheartedness of a creature's devotion to the kingdom, it is the invariable practice of the Judges of men fully to receive the doubtful candidate. The door of eternal life is wide open to all; "whosoever will may come"; there are no restrictions or qualifications save the *faith* of the one who comes.

139:12.8 (1567.1) This is just the reason why Jesus permitted Judas to go on to the very end, alway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transform and save this weak and confused apostle. But when light is not honestly received and lived up to, it tends to become darkness within the soul. Judas grew intellectually regarding Jesus' teachings about the kingdom, but he did not make progress in the acquirement of spiritual character as did the other apostles. He failed to make satisfactory personal progress in spiritual experience.

139:12.9 (1567.2) Judas became increasingly a brooder over personal disappointment, and finally he became a victim of resentment. His feelings had been many times hurt, and he grew abnormally suspicious of his best friends, even of the Master. Presently he became obsessed with the idea of getting even, anything to avenge himself, yes, even betrayal of his associates and his Master.

139:12.10 (1567.3) But these wicked and dangerous ideas did not take definite shape until the day when a grateful woman broke an expensive box of incense at Jesus' feet. This seemed wasteful to Judas, and when his public protest was so sweepingly disallowed by Jesus right there in the hearing of all, it was too much. That event determined the mobilization of all the accumulated hate, hurt, malice, prejudice, jealousy, and revenge of a lifetime, and he made up his mind to get even with he knew not whom; but he crystallized all the evil of his nature upon the *one* innocent person in all the sordid drama of his unfortunate life just because Jesus happened to be the chief actor in the episode which marked his passing from the progressive kingdom of light into that self-chosen domain of darkness.

139:12.11 (1567.4) The Master many times, both privately and publicly, had warned Judas that he was slipping, but divine warnings are usually useless in dealing with embittered human nature. Jesus did everything possible, consistent with man's moral freedom, to prevent Judas's choosing to go the wrong way. The great test finally came. The son of resentment failed; he yielded to the sour and sordid dictates of a proud and vengeful mind of exaggerated self-importance

도로 혼란과 절망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139:12.12] 그런 후 유다는 그의 주님인 주(主)를 배반하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음모에 들어가서 흉악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였다. 그는 자기 분노로 인한 반역적인 배반을 하는 동안, 잠시 수치심과 후회를 체험하였고, 이렇게 제 정신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의 변명으로, 예수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힘을 발휘하여 그 자신을 구해낼 것이라는 관념을 약하게 인식하였다.

[139:12.13] 비열하고 죄 많은 일이 모두 수행된 후, 오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친구를 은 30개를 받고 가볍게 팔아넘길 것을 생각했던 이 변절자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로부터 도망—자살을 함으로써 자신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갔다.

[139:12.14] 11명의 사도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너무 놀랐다. 예수는 이 배반자를 오직 동정하였을 뿐이다. 세계들은 유다를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멀리-퍼진 우주에 두루 그의 이름은 피하게 되었다.

and swiftly plunged on down into confusion, despair, and depravity.

139:12.12 (1567.5) Judas then entered into the base and shameful intrigue to betray his Lord and Master and quickly carried the nefarious scheme into effect. During the outworking of his anger-conceived plans of traitorous betrayal, he experienced moments of regret and shame, and in these lucid intervals he faintheartedly conceived, as a defense in his own mind, the idea that Jesus might possibly exert his power and deliver himself at the last moment.

139:12.13 (1567.6) When the sordid and sinful business was all over, this renegade mortal, who thought lightly of selling his friend for thirty pieces of silver to satisfy his long-nursed craving for revenge, rushed out and committed the final act in the drama of fleeing from the realities of mortal existence — suicide.

139:12.14 (1567.7) The eleven apostles were horrified, stunned. Jesus regarded the betrayer only with pity. The worlds have found it difficult to forgive Judas, and his name has become eschewed throughout a far-flung universe.

제 140 편 열 두 사도의 성직 임명

⇨ 139

유랜시아 책

14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0 편 열 두 사도의 성직 임명

섹션

소개

- 제 1 장. 예비 지침
- 제 2 장. 성직 임명
- 제 3 장. 성직 임명 설교
- 제 4 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 제 5 장.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 제 6 장. 성직 임명이 있던 날 저녁
- 제 7 장. 성직 임명 다음 주간
- 제 8 장.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 제 9 장. 헌납식이 있던 날
- 제 10 장. 헌납식 이후의 밤

PAPER 140

THE ORDINATION OF THE TWELVE

SECTIONS

Introduction

- 1. Preliminary Instruction
- 2. The Ordination
- 3. The Ordination Sermon
- 4.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 5. Fatherly and Brotherly Love
- 6. The Evening of the Ordination
- 7. The Week Following the Ordination
- 8. Thursday Afternoon on the Lake
- 9. The Day of Consecration
- 10. The Evening after the Consecration

소개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정오 직전에, 예수는 왕국의 복음을 전할 대중 전도자들로 임명하기 위해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사도들은 어느 때든지 부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날 아침에도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로부터 멀리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그물 손질과 고기잡이 도구의 수선 작업을 하며 호숫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는 호숫가로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 들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배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예수는 나머지 사도들도 두 사람씩 불러 열두 명을 다 모아 가버나움 북쪽의 산지로 가서 그들의 공식적인 임명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번에는 열 두 사도들 모두가 침묵을 지켰으

INTRODUCTION

^{140:0.1 (1568.1)} JUST before noon on Sunday, January 12, A.D. 27, Jesus called the apostles together for their ordination as public preach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twelve were expecting to be called almost any day; so this morning they did not go out far from the shore to fish. Several of them were lingering near the shore repairing their nets and tinkering with their fishing paraphernalia.

^{140:0.2 (1568.2)} As Jesus started down the seashore calling the apostles, he first hailed Andrew and Peter, who were fishing near the shore; next he signaled to James and John, who were in a boat near by, visiting with their father, Zebedee, and mending their nets. Two by two he gathered up the other apostles, and when he had assembled all twelve, he journeyed with them to the highlands north of Capernaum, where he proceeded to instruct them in preparation for their formal ordination.

^{140:0.3 (1568.3)} For once all twelve of the apostles

며; 베드로조차 사색에 잠긴 마음가짐으로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주(主)를 대신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 봉헌과 집단적 봉헌의 엄숙한 의식에 참여하려고 주(主)와 함께 떠나고 있었다.

제 1 장. 예비 지침

정식 임명 봉사에배에 앉아서, 예수는 사도들을 자신의 주위에 앉히고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왕국이 도래하였다.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 왕국의 대사로 현시하기 위해 여기에 따로 불렀다. 너희들 중 일부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왕국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회당에서 이미 들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 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왕국에 대해 너희에게 좀 더 가르치고자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가슴속에 곧 세우시게 될 새로운 왕국의 영토는 영속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이들의 가슴속에서는 그의 주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느님도 아니시다.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와 너희와 자리를 함께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통치하는 아버지의 영의 이러한 새로운 형제신분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 왕국의 힘은 군대의 강한 힘에 있지 않고 부(富)의 막강함에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 하늘 왕국의 거대한 백성들, 하느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가슴을 지배하는 신성한 영의 영광에 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형제신분인데 그 안에서는 정의(正義)가 지배하며, 다음과 같은 합성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화가 그리고 모든 이들 위에는 선한 뜻이 이루어 질 것이다. 너희가 곧 선포하러 나가게 될 이 왕국은, 모든 선한 이들의 바램이요 온 땅의 소망이며 모든 선지자들의 지혜로운 약속들에 대한 성취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또한 너희를 따라서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앞에 가로 놓여있다. 오직 믿음만이 너희가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보적인 일생 속에서 계속하여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주님, 주님’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were silent; even Peter was in a reflective mood. At last the long-awaited-for hour had come! They were going apart with the Master to participate in some sort of solemn ceremony of personal consecration and collective dedication to the sacred work of representing their Master in the proclamation of the coming of his Father's kingdom.

1. PRELIMINARY INSTRUCTION

140:1.1 (1568.4) Before the formal ordination service Jesus spoke to the twelve as they were seated about him: “My brethren, this hour of the kingdom has come. I have brought you apart here with me to present you to the Father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Some of you heard me speak of this kingdom in the synagogue when you first were called. Each of you has learned more about the Father's kingdom since you have been with me working in the cities around about the Sea of Galilee. But just now I have something more to tell you concerning this kingdom.

140:1.2 (1568.5) “The new kingdom which my Father is about to set up in the hearts of his earth children is to be an everlasting dominion. There shall be no end of this rule of my Father in the hearts of those who desire to do his divine will. I declare to you that my Father is not the God of Jew or gentile. Man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to sit down with us in the Father's kingdom, while many of the children of Abraham will refuse to enter this new brotherhood of the rule of the Father's spirit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men.

140:1.3 (1568.6) “The power of this kingdom shall consist, not in the strength of armies nor in the might of riches, but rather in the glory of the divine spirit that shall come to teach the minds and rule the hearts of the reborn citizens of this heavenly kingdom, the sons of God. This is the brotherhood of love wherein righteousness reigns, and whose battle cry shall be: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to all men. This kingdom, which you are so soon to go forth proclaiming, is the desire of the good men of all ages, the hope of all the earth, and the fulfillment of the wise promises of all the prophets.

140:1.4 (1569.1) “But for you, my children, and for all others who would follow you into this kingdom, there is set a severe test. Faith alone will pass you through its portals, but you must bring forth the fruits of my Father's spirit if you would continue to ascend in the progressive life of the divine fellowship. Verily, verily, I say to you, not every one who says,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rather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전할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찾는 동안에,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함께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은 힘을 밖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꼴사나운 실증을 통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국을 전파하러 나가게 될 때, ‘왕국이 여기 있다’ 또는 ‘왕국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전할 이 왕국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활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의 시중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단 하늘왕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며 아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왕국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의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이미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의 일부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주권이 큰 힘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평범한 열두 명으로 이루어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찰 때까지 배가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왕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 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가 떠났을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감을 너희 혼속에 갖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제 2 장. 성직 임명

예수는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방금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런 다음 주(主)는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사도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손을 내 뻗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메신저자인 이들을 이제 당신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아온 것처럼, 저를 대신하여 내보내기 위해 이 세상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열 두 명을 택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고 또 함께 하여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시여, 다가오는 왕국의 모든 관련사들을 저들의 손에 맡겼사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왕국을 위한 저들의 수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세상

140:1.5 (1569.2) “Your message to the world shall be: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in finding these, all other things essential to eternal survival shall be secured therewith. And now would I make it plain to you that this kingdom of my Father will not come with an outward show of power or with unseemly demonstration. You are not to go hence in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saying, ‘it is here’ or ‘it is there,’ for this kingdom of which you preach is God within you.

140:1.6 (1569.3) “Whosoever would become great in my Father’s kingdom shall become a minister to all; and whosoever would be first among you, let him become the server of his brethren. But when you are once truly received as citizens in the heavenly kingdom, you are no longer servants but sons, sons of the living God. And so shall this kingdom progress in the world until it shall break down every barrier and bring all men to know my Father and believe in the saving truth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Even now is the kingdom at hand, and some of you will not die until you have seen the reign of God come in great power.

140:1.7 (1569.4) “And this which your eyes now behold, this small beginning of twelve commonplace men, shall multiply and grow until eventually the whol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praise of my Father. And it will not be so much by the words you speak as by the lives you live that men will know you have been with me and have learned of the realities of the kingdom. And while I would lay no grievous burdens upon your minds, I am about to put upon your souls the solemn responsibility of representing me in the world when I shall presently leave you as I now represent my Father in this life which I am living in the flesh.”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tood up.

2. THE ORDINATION

140:2.1 (1569.5) Jesus now instructed the twelve mortals who had just listened to his declaration concerning the kingdom to kneel in a circle about him. Then the Master placed his hands upon the head of each apostle, beginning with Judas Iscariot and ending with Andrew. When he had blessed them, he extended his hands and prayed:

140:2.2 (1569.6) “My Father, I now bring to you these men, my messengers. From among our children on earth I have chosen these twelve to go forth to represent me as I came forth to represent you. Love them and be with them as you have loved and been with me. And now, my Father, give these men wisdom as I place all the affairs of the coming kingdom in their hands. And I would, if it is your will, tarry on earth a time to help them in their labors for the kingdom. And again, my Father, I

에 좀 더 머물도록 하겠습니까. 이들을 주심을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완결하는 동안 저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맡깁니다.”

예수가 기도를 완결하였을 때 사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한동안 감히 고개를 들어 주(主)를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 명씩 나아가서 예수를 포옹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천상 존재들의 무리단이 이 엄숙하고 성스러운 광경—한 우주의 창조자께서 사람의 신성한 형제신분의 관련사들을 인간 마음의 지도 아래에 맡기시는—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그 곳은 깊은 침묵에 싸여 있었다.

제 3 장. 성직 임명 설교

그런 다음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大使)들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부터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무지한 생명들 가운데에 있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깨우친 다른 시민들이 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 시간 이전처럼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제부터는 좀 더 나은 일생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그 세계의 주권자의 대사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만 한다. 제자 보다는 선생에게 더 많은 것이 기대된다; 하인 보다는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하늘왕국의 시민들에게는 이 세상이 규정하는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나의 대변인인 너희들에게는, 공간 세계들의 필사자 삶에 대한 나의 관념이 반영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생 속에서 내가 예증하는 그 가르침들과 실천한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보거든, 너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영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행복이 있으니, 하늘의 왕국의 보물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義)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thank you for these men, and I commit them to your keeping while I go on to finish the work you have given me to do.”

140:2.3 (1570.1) When Jesus had finished praying, the apostles remained each man bowed in his place. And it was many minutes before even Peter dared lift up his eyes to look upon the Master. One by one they embraced Jesus, but no man said aught. A great silence pervaded the place while a host of celestial beings looked down upon this solemn and sacred scene — the Creator of a universe placing the affairs of the divine brotherhood of man under the direction of human minds.

3. THE ORDINATION SERMON

140:3.1 (1570.2) Then Jesus spoke, saying: “Now that you are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you have thereby become a class of men separate and distinct from all other men on earth. You are not now as men among men but as the enlightened citizens of another and heavenly country among the ignorant creatures of this dark world. It is not enough that you live as you were before this hour, but henceforth must you live as those who have tasted the glories of a better life and have been sent back to earth as ambassadors of the Sovereign of that new and better world. Of the teacher more is expected than of the pupil; of the master more is exacted than of the servant. Of the citizens of the heavenly kingdom more is required than of the citizens of the earthly rule. Some of the things which I am about to say to you may seem hard, but you have elected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even as I now represent the Father; and as my agents on earth you will be obligated to abide by those teachings and practices which are reflective of my ideals of mortal living on the worlds of space, and which I exemplify in my earth life of revealing the Father who is in heaven.

140:3.2 (1570.3) “I send you forth to proclaim liberty to the spiritual captives, joy to those in the bondage of fear, and to heal the sick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When you find my children in distress, speak encouragingly to them, saying:

140:3.3 (1570.4)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the humble, for theirs are the treasures of the kingdom of heaven.

140:3.4 (1570.5) “Happy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140:3.5 (1570.6) “Happy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140:3.6 (1570.7) “Happy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외에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와 같은 말들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라: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기쁨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궁핍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쁨으로 향유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뒷막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 높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쳐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를 대신하게 하고 내 아버지의 대사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메신저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공정에 대하여는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육신적인 힘에 의존하지 마라. 만일 너희 이웃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들 사이에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불공정으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라. 고통과 빈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비와 친절함으로 보살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는 그대로, 너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고루 비취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온당한 자들과 부당한 자들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大使)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한 것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

shall see God.

140:3.7 (1570.8) “And even so speak to my children these further words of spiritual comfort and promise:

140:3.8 (1570.9) “Happy are they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Happy are they who weep, for they shall receive the spirit of rejoicing.

140:3.9 (1570.10) “Happy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140:3.10 (1570.11) “Happy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140:3.11 (1570.12) “Happy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you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140:3.12 (1570.13) “My brethren, as I send you forth,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salt with a saving savor. But if this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foot of men.

140:3.13 (1570.1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upon a hill cannot be hid.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be led to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0:3.14 (1571.1) “I am sending you out into the world to represent me and to act as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and as you go forth to proclaim the glad tidings, put your trust in the Father whose messengers you are. Do not forcibly resist injustice; put not your trust in the arm of the flesh. If your neighbor smite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Be willing to suffer injustice rather than to go to law among yourselves. In kindness and with mercy minister to all who are in distress and in need.

140:3.15 (1571.2)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And whatsoever you believe that I would do to men, do you also to them.

140:3.16 (1571.3) “Your Father in heaven makes the sun to shine on the evil as well as upon the good; likewise he sends rain on the just and the unjust. You are the sons of God; even more, you are now the ambassadors of my Father’s kingdom. Be merciful, even as God is merciful, and in the eternal future of the kingdom you shall be perfect,

이 왕국의 영원한 미래 속에서 너희도 완전해지라.

“너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 일생이 끝날 때에는, 너희 모두는 자비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육신을 가진 너희의 모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한다. 너희 눈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하나를 뽑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버려야, 눈이 밝아져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정의로운 일생을 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것이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야만 한다. 하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기를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 보물들을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겠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들이 들어 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침내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 동기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내면적인 갈망과 진실된 목적을 심판한다.

“왕국 심판이 벌어지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으니; 가짜 선생들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임무를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봉사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에는 예수가 그들에게 최극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말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예수께 질문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even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140:3.17 (1571.4) “You are commissioned to save men, not to judge them. At the end of your earth life you will all expect mercy; therefore do I require of you during your mortal life that you show mercy to all of your brethren in the flesh. Make not the mistake of trying to pluck a mote out of your brother's eye when there is a beam in your own eye. Having first cast the beam out of your own eye, you can the better see to cast the mote out of your brother's eye.

140:3.18 (1571.5) “Discern the truth clearly; live the righteous life fearlessly; and so shall you be my apostles and my Father's ambassadors. You have heard it said: ‘If the blind lead the blind, they both shall fall into the pit.’ If you would guide others into the kingdom, you must yourselves walk in the clear light of living truth. In all the business of the kingdom I exhort you to show just judgment and keen wisdom. Present not that which is holy to dogs, neither 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lest they trample your gems under foot and turn to rend you.

140:3.19 (1571.6) “I warn you against false prophets who will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while on the inside they are as ravening wolves.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Do men gather grapes from thorns or figs from thistles? Even so, every good tree brings forth good fruit, but the corrupt tree bears evil fruit. A good tree cannot yield evil fruit, neither can a corrupt tree produce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ring forth good fruit is presently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In gaining an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it is the motive that counts. My Father looks into the hearts of men and judges by their inner longings and their sincere intentions.

140:3.20 (1571.7) “In the great day of the kingdom judgment, many will say to me,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by your name do many wonderful works?’ But I will be compelled to say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are false teachers.’ But every one who hears this charge and sincerely executes his commission to represent me before men even as I have represented my Father to you, shall find an abundant entrance into my service and into the kingdom of the heavenly Father.”

140:3.21 (1571.8) Never before had the apostles heard Jesus speak in this way, for he had talked to them as one having supreme authority.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bout sundown, but no man asked Jesus a question.

제 4 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위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많은 도움이 될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열두 사도들에게 주신 임명식 훈시였다. 그것은 주(主)께서 감동적이고도 완전하게 자기 아버지를 나타내셨던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러준 그의 개인적 명령이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의 시절에는 소금이 귀중하였다. 심지어 돈으로도 사용되었다. 현대 용어의 ‘급여’(Salary)란 말도 소금(salt)에서 유래되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의 보존제이다. 그것은 다른 것들을 더욱 맛있게 만들며, 그리고 이처럼 그것은 소모되어지면서 봉사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 높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치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한편, 빛은 또한 그렇게 “눈을 멀게”하여 혼란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롭고도 경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빛을 그렇게 빛내라고 훈계를 받았다. 우리는 빛을 밝게 비치되, 자아에 대한 관심에 빠지도록 그렇게 빛을 밝히면 안된다. 각자의 어떠한 직업 조차도 이 생명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영체”로 활용될 수 있다.

강한 성격은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된다. 사심없다는 것은 인간적 위대함의 표식이다. 자아-실현의 최고 차원은 경배와 봉사로써 달성된다. 행복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옳은 행위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성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변화하는—성장하는—것은 도덕적 성격이다. 현대 종교들이 범하는 주된 실수는 소극주의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져서 불 속에 던져진다.” 도덕적 가치는 단순한 억압으로—하지 말라”는 금지령에 복종하여—얻을 수 없다. 종교적 생활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가치 없는 동기이다. 종교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계시하고 사람의 형제신분을 향상시켜 나아가갈 때에만 타당할 뿐이다.

4.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140:4.1 (1572.1) The so-called “Sermon on the Mount” is not the gospel of Jesus. It does contain much helpful instruction, but it was Jesus’ ordination charge to the twelve apostles. It was the Master’s personal commission to those who were to go on preaching the gospel and aspiring to represent him in the world of men even as he was so eloquently and perfectly representative of his Father.

140:4.2 (1572.2)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salt with a saving savor. But if this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foot of men.”

140:4.3 (1572.3) In Jesus’ time salt was precious. It was even used for money. The modern word “salary” is derived from salt. Salt not only flavors food, but it is also a preservative. It makes other things more tasty, and thus it serves by being spent.

140:4.4 (1572.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be led to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0:4.5 (1572.5) While light dispels darkness, it can also be so “blinding” as to confuse and frustrate. We are admonished to let our light so shine that our fellows will be guided into new and godly paths of enhanced living. Our light should so shine as not to attract attention to self. Even one’s vocation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reflector” for the dissemination of this light of life.

140:4.6 (1572.6) Strong characters are not derived from *not* doing wrong but rather from actually doing right. Unselfishness is the badge of human greatness. The highest levels of self-realization are attained by worship and service. The happy and effective person is motivated, not by fear of wrongdoing, but by love of right doing.

140:4.7 (1572.7)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Personality is basically changeless; that which changes — grows — is the moral character. The major error of modern religions is negativism. The tree which bears no frui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Moral worth cannot be derived from mere repression — obeying the injunction “Thou shalt not.” Fear and shame are unworthy motivations for religious living. Religion is valid only when it reveals the fatherhood of God and enhances the brotherhood of men.

성공적인 삶의 철학은, 조화우주 통찰력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대한 각자의 감정반응의 합계가 병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선천적인 충동욕구는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 없는 반면, 그러한 충동욕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본성은 수정될 수 있고 성격은 향상될 수 있다. 튼튼한 성격 안에서 감정적 반응들이 집대성되고 조화-협동되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개인성이 나오게된다. 부족한 통일이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고 불행을 야기한다.

가치 있는 목표가 없다면, 인생은 이렇다 할 주견이 없게 되고 무익하게 되며 더욱 불행하게 된다. 열 두 사도 성직 임명식에서 행한 예수의 강연은 인생에 대하여 주(主)가 되는 철학을 이루고 있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체험적 신앙을 행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단순한 지적 동의, 쉽게 믿는 것, 그리고 확립된 권한에 의존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훈계하였다.

교육은 우리의 본성적이고 선천적인 충동욕구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기법을 배우는(발견하는) 것이어야 하며, 행복은 정서적 만족에 대한 이들 강화된 기법에서의 결과가 만드는 총합이다. 행복은 환경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쾌적한 주변들은 행복에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다.

모든 필사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완성된 사람이기를 실제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달성은,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주는 참으로 아버지다운”것 이기에 가능하다.

제 5 장.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산상수훈에서부터 최후의 만찬에서의 강연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형제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현시하도록 가르치셨다. 형제로서의 사랑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너희 동료 필사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예수는 인류를 이중적인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땅에서 하나의 두 겹으로 중첩된 개인성—인간적인 개인성과 신성한 개인성—으로 사셨다.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그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그는 사람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우주 아버지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는, 하나의 형제로 필사자들을 사랑한다—그는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이 형제로서의 사랑에서 어떤 불가능한 현시활동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과 같이 되도록—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그들이 심히 분투함으로써, 하느님이 당신의 창

140:4.8 (1572.8) An effective philosophy of living is formed by a combination of cosmic insight and the total of one's emotional reactions to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Remember: While inherited urges cannot be fundamentally modified, emotional responses to such urges can be changed; therefore the moral nature can be modified, character can be improved. In the strong character emotional responses are integrated and co-ordinated, and thus is produced a unified personality. Deficient unification weakens the moral nature and engenders unhappiness.

140:4.9 (1572.9) Without a worthy goal, life becomes aimless and unprofitable, and much unhappiness results. Jesus' discourse at the ordination of the twelve constitutes a master philosophy of life. Jesus exhorted his followers to exercise experiential faith. He admonished them not to depend on mere intellectual assent, credulity, and established authority.

140:4.10 (1573.1) Education should be a technique of learning (discovering) the better methods of gratifying our natural and inherited urges, and happiness is the resulting total of these enhanced techniques of emotional satisfactions. Happiness is little dependent on environment, though pleasing surroundings may greatly contribute thereto.

140:4.11 (1573.2) Every mortal really craves to be a complete person,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and such attainment is possible because in the last analysis the “universe is truly fatherly.”

5. FATHERLY AND BROTHERLY LOVE

140:5.1 (1573.3) From the Sermon on the Mount to the discourse of the Last Supper, Jesus taught his followers to manifest *fatherly* love rather than *brotherly* love. Brotherly love woul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that would be adequate fulfillment of the “golden rule.” But fatherly affection would require that you should love your fellow mortals as Jesus loves you.

140:5.2 (1573.4) Jesus loves mankind with a dual affection. He lived on earth as a twofold personality — human and divine. As the Son of God he loves man with a fatherly love — he is man's Creator, his universe Father. As the Son of Man, Jesus loves mortals as a brother — he was truly a man among men.

140:5.3 (1573.5) Jesus did not expect his followers to achieve an impossible manifestation of brotherly love, but he did expect them to so strive to be like God — to b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 that they could begin to look upon

조체들을 대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그렇게—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 주기 시작하는—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열 두 사도들을 향한 이러한 권고의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개념이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된 감정적 태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主)는 이렇게 중대한 강연을 시작하면서, 단순한 형제의 사랑의 한계에 대비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네 가지의 초월적이고도 최극의 반응들로 이루어진 후반부의 묘사에 대한 전주곡으로, 신앙의 네 가지 태도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는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 정의에 굶주린 자들, 온유한 자들, 가슴이 청결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영을 인식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자아없음의 그러한 차원을 달성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애용하는 사람들로써도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힘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의 애정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초월하는 현신의 차원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들 지극한 축복의 신앙과 사랑은 도덕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공포와 분노는 성격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차대한 설교는 행복의 음률에서 시작되며 나왔다.

1. “영에서 가난한 자들—겸손한 자들—은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갈망이 충족되는 것이다. 어른들은 행복의 증강이라는 수확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부정이라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이후로, 행복은 재산의 소유라는 관념과 너무 흔히 연관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일화에서, 바리새인은 영적 풍요—자기중심적—를 느꼈고, 세리는 “영적으로 가난함”—겸손—을 느꼈다. 한 사람은 자아-풍족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풍요에 대한 갈망—하느님에 대한—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탐구자들은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지금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속에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며, 그러한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만이 언제나 정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신성한 권능과 영적 힘을 추구한다. 그러나 영적 자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적 금식은 4, 5일이 지나면

man as God looks upon his creatures and therefore could begin to love men as God loves them — to show forth the beginnings of a fatherly affection. In the course of these exhortations to the twelve apostles, Jesus sought to reveal this new concept of *fatherly love* as it is related to certain emotional attitudes concerned in making numerous environmental social adjustments.

140:5.4 (1573.6) The Master introduced this momentous discourse by calling attention to four *faith* attitudes as the prelude to the subsequent portrayal of his four transcendent and supreme reactions of fatherly love in contrast to the limitations of mere brotherly love.

140:5.5 (1573.7) He first talked about those who were poor in spirit, hungered after righteousness, endured meekness, and who were pure in heart. Such spirit-discerning mortals could be expected to attain such levels of divine selflessness as to be able to attempt the amazing exercise of *fatherly affection*; that even as mourners they would be empowered to show mercy, promote peace, and endure persecutions, and throughout all of these trying situations to love even unlovely mankind with a fatherly love. A father's affection can attain levels of devotion that immeasurably transcend a brother's affection.

140:5.6 (1573.8) The faith and the love of these beatitudes strengthen moral character and create happiness. Fear and anger weaken character and destroy happiness. This momentous sermon started out upon the note of happiness.

140:5.7 (1573.9) 1.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 the humble.” To a child, happiness is the satisfaction of immediate pleasure craving. The adult is willing to sow seeds of self-denial in order to reap subsequent harvests of augmented happiness. In Jesus' times and since, happiness has all too often been associated with the idea of the possession of wealth. In the story of the Pharisee and the publican praying in the temple, the one felt rich in spirit — egotistical; the other felt “poor in spirit” — humble. One was self-sufficient; the other was teachable and truth-seeking. The poor in spirit seek for goals of spiritual wealth — for God. And such seekers after truth do not have to wait for rewards in a distant future; they are rewarded *now*. They find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their own hearts, and they experience such happiness *now*.

140:5.8 (1574.1) 2. “Happy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Only those who feel poor in spirit will ever hunger for righteousness. Only the humble seek for divine strength and crave spiritual power. But it is most dangerous to knowingly engage in spiritual fasting in order to improve one's appetite for spiritual

위험해지고,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 자체를 없애는 경향이 있다.

체험으로 얻는 의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로움은 역동적인 사랑—아버지의 애정과 형제의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정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계속 바랄 수 있겠는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에게 이들 무상의 행복에 관한 처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숙한 마음은 그 의의(意義)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협조하려는 사람의 태도—“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다. 그것은 인내와 참음을 포용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그것은 신성한 인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친다.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으며 광대한 하나의 우주를 상속받았다.

4.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복수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인 본질특성의 것이 아니다. 순결을 논함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의 성(性)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앙;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같이 그들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는 신앙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찾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세이다.

하느님을 보는 것—신앙을 통해서—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은 조절자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느님을-의식하는 것을 증강시킨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 자신들이 신성한 아들관계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형제들을 형제로서—형제의 사랑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아버지의 애정—그들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훈은 어린이에게도 가르치기 쉽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쉽게 믿으며, 부모들은 이들의 단순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일으키도록 던지는 비추는 것을 삼가라. 그들이 자신들의 영웅들을 고르고 자신들의 일생의 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endowments. Physical fasting becomes dangerous after four or five days; one is apt to lose all desire for food. Prolonged fasting, either physical or spiritual, tends to destroy hunger.

140:5.9 (1574.2) Experiential righteousness is a pleasure, not a duty. Jesus' righteousness is a dynamic love — fatherly-brotherly affection. It is not the negative or thou-shalt-not type of righteousness. How could one ever hunger for something negative — something “not to do”?

140:5.10 (1574.3) It is not so easy to teach a child mind these first two of the beatitudes, but the mature mind should grasp their significance.

140:5.11 (1574.4) 3. “Happy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Genuine meekness has no relation to fear. It is rather an attitude of man co-operating with God — “Your will be done.” It embraces patience and forbearance and is motivated by an unshakable faith in a lawful and friendly universe. It masters all temptations to rebel against the divine leading. Jesus was the ideal meek man of Urantia, and he inherited a vast universe.

140:5.12 (1574.5) 4. “Happy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Spiritual purity is not a negative quality, except that it does lack suspicion and revenge. In discussing purity, Jesus did not intend to deal exclusively with human sex attitudes. He referred more to that faith which man should have in his fellow man; that faith which a parent has in his child, and which enables him to love his fellows even as a father would love them. A father's love need not pamper, and it does not condone evil, but it is always anticynical. Fatherly love has singleness of purpose, and it always looks for the best in man; that is the attitude of a true parent.

140:5.13 (1574.6) To see God — by faith — means to acquire true spiritual insight. And spiritual insight enhances Adjuster guidance, and these in the end augment God-consciousness. And when you know the Father, you are confirmed in the assurance of divine sonship, and you can increasingly love each of your brothers in the flesh, not only as a brother — with brotherly love — but also as a father — with fatherly affection.

140:5.14 (1574.7) It is easy to teach this admonition even to a child. Children are naturally trustful, and parents should see to it that they do not lose that simple faith. In dealing with children, avoid all deception and refrain from suggesting suspicion. Wisely help them to choose their heroes and select their lifework.

140:5.15 (1574.8) And then Jesus went on to instruct

인간의 모든 투쟁들의 주된 목적—완전함—신성한 달성까지도—의 실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는 12사도들에게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가치 있는 성취로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형제의 사랑의 성취를 나타냈어야 했다. 그는 오히려 사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형제의 사랑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네 가지 최극의 반응들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하였다:

1.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선의 논리에서는, 행복이 애통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외적이거나 혹은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정이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하였다.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부드러움이나 다른 감정적 느낌이나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실수다. 연민의 정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가치 있는 속성이 된다. 남자다워지기 위해서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용감한 남자를 창조하는 그릇된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의 영도자였지만 그는 또한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인간 욕구에 민감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진정하고 영구한 행복을 창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해준다.

2. “공활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공활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비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진실한 우정—자애로움—을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최극의 아버지다운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여러 번 용서하여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녀를 고통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하는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이 실제적 상태를 감사하며 인정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적이 된다.

3. “평화를-만드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군사적 해방을 소망하고 있었지 평화를-만드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는 평화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재판관 박해에 직면하였을 때 예수는,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슴에 파란이 일게 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평화이다. 개인적 평화는 개인성을 집대성한다. 사회적 평화는 두려움과 탐욕과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적 반목과 민족적 의심 그리고 전쟁을 막는다. 평화를-만

his followers in the realization of the chief purpose of all human struggling — perfection — even divine attainment. Always he admonished them: “Be you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He did not exhort the twelve to love their neighbors as they loved themselves. That would have been a worthy achievement; it would have indicated the achievement of brotherly love. He rather admonished his apostles to love men as he had loved them — to love with a *fatherly* as well as a brotherly affection. And he illustrated this by pointing out four supreme reactions of fatherly love:

140:5.16 (1575.1) 1. “Happy are they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So-called common sense or the best of logic would never suggest that happiness could be derived from mourning. But Jesus did not refer to outward or ostentatious mourning. He alluded to an emotional attitude of tenderheartedness. It is a great error to teach boys and young men that it is unmanly to show tenderness or otherwise to give evidence of emotional feeling or physical suffering. Sympathy is a worthy attribute of the male as well as the female. It is not necessary to be calloused in order to be manly. This is the wrong way to create courageous men. The world’s great men have not been afraid to mourn. Moses, the mourner, was a greater man than either Samson or Goliath. Moses was a superb leader, but he was also a man of meekness. Being sensitive and responsive to human need creates genuine and lasting happiness, while such kindly attitudes safeguard the soul from the destructive influences of anger, hate, and suspicion.

140:5.17 (1575.2) 2. “Happy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Mercy here denotes the height and depth and breadth of the truest friendship — loving-kindness. Mercy sometimes may be passive, but here it is active and dynamic — supreme fatherliness. A loving parent experiences little difficulty in forgiving his child, even many times. And in an unspoiled child the urge to relieve suffering is natural. Children are normally kind and sympathetic when old enough to appreciate actual conditions.

140:5.18 (1575.3) 3. “Happy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Jesus’ hearers were longing for military deliverance, not for peacemakers. But Jesus’ peace is not of the pacific and negative kind. In the face of trials and persecutions he said, “My peace I leave with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This is the peace that prevents ruinous conflicts. Personal peace integrates personality. Social peace prevents fear, greed, and anger. Political peace prevents race antagonisms, national suspicions, and war. Peacemaking is the cure of distrust and suspicion.

드는 일이 불신과 의심에 대한 치료이다.

아이들은 평화를-만드는 자로 기능하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들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쁨으로 향유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평화 뒤에는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과 위험을 결코 피해 가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일들—형제의 사랑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박해의 최종적 수확물은 언제나 진보였다.

아이들은 항상 용기 있는 도전에 반응한다. 젊은이는 언제나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일찍부터 희생마음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의 지복(至福)의 말씀은 법—윤리나 의무—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과 사랑에 그 기반을 두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악에 대하여 선으로 보답하는—불공정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주는— 일을 기뻐한다.

140:5.19 (1575.4) Children can easily be taught to function as peacemakers. They enjoy team activities; they like to play together. Said the Master at another time: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but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shall find it.”

140:5.20 (1575.5) 4. “Happy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you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140:5.21 (1575.6) So often persecution does follow peace. But young people and brave adults never shun difficulty or danger.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And a fatherly love can freely do all these things — things which brotherly love can hardly encompass. And progress has always been the final harvest of persecution.

140:5.22 (1575.7) Children always respond to the challenge of courage. Youth is ever willing to “take a dare.” And every child should early learn to sacrifice.

140:5.23 (1575.8) And so it is revealed that the beatitudes of the Sermon on the Mount are based on faith and love and not on law — ethics and duty.

140:5.24 (1575.9) Fatherly love delights in returning good for evil — doing good in retaliation for injustice.

제 6 장. 성직 임명이 있던 날 저녁

일요일 저녁, 가버나움 북쪽의 산지로부터 세베대의 집에 도착한 예수와 12사도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였다. 그 후에 예수가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단한 회의를 마친 후에 쌍둥이 형제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안드레는 예수를 찾아 나섰으며,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주(主)여, 내 형제들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실 때까지는 이 임무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드레와 함께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다.

정원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는 사도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가

6. THE EVENING OF THE ORDINATION

140:6.1 (1576.1) Sunday evening, on reaching the home of Zebedee from the highlands north of Capernaum, Jesus and the twelve partook of a simple meal. Afterward, while Jesus went for a walk along the beach, the twelve talked among themselves. After a brief conference, while the twins built a small fire to give them warmth and more light, Andrew went out to find Jesus, and when he had overtaken him, he said: “Master, my brethren are unable to comprehend what you have said about the kingdom. We do not feel able to begin this work until you have given us further instruction. I have come to ask you to join us in the garden and help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your words.” And Jesus went with Andrew to meet with the apostles.

140:6.2 (1576.2) When he had entered the garden, he gathered the apostles around him and taught them further, saying: “You find it difficult to receive my

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믿고 또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 왕국의 새 복음은 현재 있는 것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갈라놓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키려고, 발전시키고 명백하게 밝히려 왔었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슴의 돌판 위에 새 계명을 새겨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구제(救濟)와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들의 정의로움을 앞지를 수 있는 어떤 정의로움을 요구한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이루어진 정의로움—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신실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主)여, 새 계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새 길을 보여 주십시오.” 예수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이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행위의 뒤에 감추어진 동기를 본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자기 마음에 증오를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는 동료들을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도에 의해서 심판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자기 가슴속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다. 너희는 사람을 오직 그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가슴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비 안에서 그들의 의도와 실제 갈망에 따라 그들을 판결한다.”

예수가 다른 계명에 대해 계속 논의할 마음을 가졌지만, 야고보 세베대가 중간에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혼(離婚)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야 합니까?” 예수가 이 물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법(法)을 제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왕국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태도를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해방시키며 혼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혼의 문제에 관한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모세는 이러한 일을 허락했으나 아담의 시대

message because you would build the new teaching directly upon the old, but I declare that you must be reborn. You must start out afresh as little children and be willing to trust my teaching and believe in Go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cannot be made to conform to that which is. You have wrong ideas of the Son of Man and his mission on earth.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I have come to set aside the law and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to enlarge and illuminate. I come not to transgress the law but rather to write these new commandments on the tablets of your hearts.

140:6.3 (1576.3) “I demand of you a righteousness that shall exceed the righteousness of those who seek to obtain the Father's favor by almsgiving, prayer, and fasting. If you would enter the kingdom, you must have a righteousness that consists in love, mercy, and truth — the sincere desire to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140:6.4 (1576.4) Then said Simon Peter: “Master, if you have a new commandment, we would hear it. Reveal the new way to us.” Jesus answered Peter: “You have heard it said by those who teach the law: ‘You shall not kill; that whosoever kills shall be subject to judgment.’ But I look beyond the act to uncover the motive. I declare to you that every 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is in danger of condemnation. He who nurses hatred in his heart and plans vengeance in his mind stands in danger of judgment. You must judge your fellows by their deeds; the Father in heaven judges by the intent.

140:6.5 (1576.5) “You have heard the teachers of the law sa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that every man who looks upon a woman with intent to lust after her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You can only judge men by their acts, but my Father looks into the hearts of his children and in mercy adjudges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s and real desires.”

140:6.6 (1576.6) Jesus was minded to go on discussing the other commandments when James Zebedee interrupted him, asking: “Master, what shall we teach the people regarding divorcement? Shall we allow a man to divorce his wife as Moses has directed?” And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said: “I have not come to legislate but to enlighten. I have come not to reform the kingdoms of this world but rather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It is not the will of the Father that I should yield to the temptation to teach you rules of government, trade, or social behavior, which, while they might be good for today, would be far from suitable for the society of another age. I am on earth solely to comfort the minds, liberate the spirits, and save the souls of

에 그 동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잠깐 동안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예수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는 모든 필사자의 행위에는 두 가지 관점들—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육신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 시간적인 평가와 영원에서의 관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만 한다.” 사도들이 비록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려고 한다; 내 가르침의 영을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다시 상기시키는데 너희는 나의 메신저들임을 명심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입었다. 너희는 나의 개인적 대표자들이지만; 모든 이들이 모든 면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살리라고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외에도 다른 무리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내가 매인바 되어 끝까지 필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물었다: “주(主)여, 우리가 공의를 위해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의 메신저들은 사람들과 분투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당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은 너희의 법칙이 아니다. 사람의 규율에는 그러한 법이 있지만,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자비가 너희의 심판을 결정해야 하며 사랑이 너희의 행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너희에게 벽차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다. 만약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희에게 너무 벽차다면, 너희는 덜 엄격한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들을 듣고 사도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졌으나, 그들은 곧 다시 돌아왔으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 어느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대가(代價)를 치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라라. 너희의 선행을 은밀히 행하되;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홀로 따로 가서 하며,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다른 이에게 보

men. But I will say, concerning this question of divorcement, that, while Moses looked with favor upon such things, it was not so in the days of Adam and in the Garden.”

140:6.7 (1577.1) After the apostles had talked among themselves for a short time, Jesus went on to say: “Always must you recognize the two viewpoints of all mortal conduct —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ways of the flesh and the way of the spirit; the estimate of time and the viewpoint of eternity.” And though the twelve could not comprehend all that he taught them, they were truly helped by this instruction.

140:6.8 (1577.2) And then said Jesus: “But you will stumble over my teaching because you are wont to interpret my message literally; you are slow to discern the spirit of my teaching. Again must you remember that you are my messengers; you are beholden to live your lives as I have in spirit lived mine. You are my personal representatives; but do not err in expecting all men to live as you do in every particular. Also must you remember that I have sheep not of this flock, and that I am beholden to them also, to the end that I must provide for them the pattern of doing the will of God while living the life of the mortal nature.”

140:6.9 (1577.3) Then asked Nathaniel: “Master, shall we give no place to justice? The law of Moses says,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What shall we say?” And Jesus answered: “You shall return good for evil. My messengers must not strive with men, but be gentle toward all. Measure for measure shall not be your rule. The rulers of men may have such laws, but not so in the kingdom; mercy always shall determine your judgments and love your conduct. And if these are hard sayings, you can even now turn back. If you find the requirements of apostleship too hard, you may return to the less rigorous pathway of discipleship.”

140:6.10 (1577.4) On hearing these startling words, the apostles drew apart by themselves for a while, but they soon returned, and Peter said: “Master, we would go on with you; not one of us would turn back. We are fully prepared to pay the extra price; we will drink the cup. We would be apostles, not merely disciples.”

140:6.11 (1577.5)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Be willing, then, to take up your responsibilities and follow me. Do your good deeds in secret; when you give alms, let not the left hand know what the right hand does. And when you pray, go apart by yourselves and use not vain repetitions and meaningless phrases. Always remember that the Father knows what you need even before you ask

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나의 선택된 사도로서 이제 왕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에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따라서 만약 네 눈이 관대하면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눈이 이기적이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자 도마가 예수께 자기들이 “계속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가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의 납득하는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 왕국의 일에 기탄없는 협력을 하려고 애쓴다면, 너희 자신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자진해서 일하는 손과 진실한 가슴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왕국의 일에 헌신하고자 준비했으므로,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함을 못본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 날로 족하다.”

예수는 그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 내일의 일을 위해 숙소로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눈에서는 잠이 떠났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주(主)께 간청하였다: “저는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영 때문이며, 어쩌면 주(主)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지도 모르지만, 주(主)와 단 둘이서라면 달갑게 받겠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 와라.”라고 말씀하며 집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의 주(主)의 현존으로부터 돌아온 베드로가 기분이 한결 고조된 것에 힘을 얻어 야고보도 예수와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시간까지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주(主)와 개인적 면담을 가졌다. 잠을 자고 있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의 면담을 끝내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主)여, 쌍둥이 형제는 뜰에 있는 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도 선생님과 면담을 하겠는지 물어보려 게울까요?” 그러자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안드레에게 말씀하였다: “그들은 잘하고 있으니—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오

him. And be not given to fasting with a sad countenance to be seen by men. As my chosen apostles, now set apart for the service of the kingdom, lay not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but by your unselfish service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for where your treasures are, there will your hearts be also.

140:6.12 (1577.6) “The lamp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your eye is generous,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 is selfish, the whole body will be filled with darkness. If the very light which is in you is turned to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140:6.13 (1577.7) And then Thomas asked Jesus if they should “continue having everything in common.” Said the Master: “Yes, my brethren, I would that we should live together as one understanding family. You are intrusted with a great work, and I crave your undivided service. You know that it has been well sai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incerely worship God and at the same time wholeheartedly serve mammon. Having now enlisted unreservedly in the work of the kingdom, be not anxious for your lives; much less be concerned with what you shall eat or what you shall drink; nor yet for your bodies, what clothing you shall wear. Already have you learned that willing hands and earnest hearts shall not go hungry. And now, when you prepare to devote all of your energi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be assured that the Father will not be unmindful of your needs.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when you have found entrance thereto, all things needful shall be added to you. Be not, therefore, unduly anxious for the morrow. Sufficient for the day is the trouble thereof.”

140:6.14 (1578.1) When Jesus saw they were disposed to stay up all night to ask questions, he said to them: “My brethren, you are earthen vessels; it is best for you to go to your rest so as to be ready for the morrow’s work.” But sleep had departed from their eyes. Peter ventured to request of his Master that “I have just a little private talk with you. Not that I would have secrets from my brethren, but I have a troubled spirit, and if, perchance, I should deserve a rebuke from my Master, I could the better endure it alone with you.” And Jesus said, “Come with me, Peter” — leading the way into the house. When Peter returned from the presence of his Master much cheered and greatly encouraged, James decided to go in to talk with Jesus. And so on through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the other apostles went in one by one to talk with the Master. When they had all held personal conferences with him save the twins, who had fallen asleep, Andrew went in to Jesus and said: “Master, the twins have fallen asleep in the garden by the fire; shall I arouse them to inquire if they would also talk with you?” And Jesus smilingly said to Andrew, “They do well — trouble

고 있었다.

제 7 장. 성직 임명 다음 주간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가르칠 너희의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예수가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主)여, 지금쯤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왕국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만 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다른 사도들 모두도 도마와 같은 생각인 것을 보시고 말씀하였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는 안식일까지 여기 머물기로 하겠다.”

여러 주간들 동안 호기심 있는 구경꾼들을 포함하여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작은 집단들이 예수를 만나러 벳새다로 왔다. 이미 예수에 관한 소식은 널리 지방에까지 퍼졌으며; 호기심에 찬 집단들이 티레, 시돈, 다마스쿠스, 케사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먼 곳의 도시로부터 왔다. 그 때까지는 예수가 그들을 맞아들여 왕국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으나, 이제는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다. 안드레는 사도들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방문자들을 맡아보게 했으며 가끔은 사도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맡아보았다.

그들은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적 모임을 가졌다. 삼 일째 되는 날, 예수는 사도들에게 “고기를 잡거나 기분전환을 하거나 혹은 가족을 방문하고 오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보내시고, 자신은 세베대와 살로메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나머지 3일 동안의 가르침을 위해 목요일에 돌아왔다.

이 연습기간 동안, 예수는 세례이후의 자신의 지상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들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1.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현시하는 일.

2.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그들이 지고자의 자녀됨을 신앙으로 깨닫는 일.

이러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가지 체험이 사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몇몇 사도들은 지나친 자아-확신이 되어 있었다. 안식일이 지난 날 밤인 마지막 저녁 모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께 나아가 말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국을 취하러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가 대답하기를, “너희 지혜가 너희의 열정에 필적하고, 너희 용기가 너희 무지를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them not.” And now the night was passing; the light of another day was dawning.

7. THE WEEK FOLLOWING THE ORDINATION

140:7.1 (1578.2) After a few hours' sleep, when the twelve were assembled for a late breakfast with Jesus, he said: “Now must you begin your work of preaching the glad tidings and instructing believers. Make ready to go to Jerusalem.” After Jesus had spoken, Thomas mustered up courage to say: “I know, Master, that we should now be ready to enter upon the work, but I fear we are not yet able to accomplish this great undertaking. Would you consent for us to stay hereabouts for just a few days more before we begin the work of the kingdom?” And when Jesus saw that all of his apostles were possessed by this same fear, he said: “It shall be as you have requested; we will remain here over the Sabbath day.”

140:7.2 (1578.3) For weeks and weeks small groups of earnest truth seekers, together with curious spectators, had been coming to Bethsaida to see Jesus. Already word about him had spread over the countryside; inquiring groups had come from cities as far away as Tyre, Sidon, Damascus, Caesarea, and Jerusalem. Heretofore, Jesus had greeted these people and taught them concerning the kingdom, but the Master now turned this work over to the twelve. Andrew would select one of the apostles and assign him to a group of visitors, and sometimes all twelve of them were so engaged.

140:7.3 (1578.4) For two days they worked, teaching by day and holding private conferences late into the night. On the third day Jesus visited with Zebedee and Salome while he sent his apostles off to “go fishing, seek carefree change, or perchance visit your families.” On Thursday they returned for three more days of teaching.

140:7.4 (1578.5) During this week of rehearsing, Jesus many times repeated to his apostles the two great motives of his postbaptismal mission on earth:

140:7.5 (1578.6) 1. To reveal the Father to man.

140:7.6 (1578.7) 2. To lead men to become son-conscious — to faith-realize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140:7.7 (1579.1) One week of this varied experience did much for the twelve; some even became over self-confident. At the last conference, the night after the Sabbath, Peter and James came to Jesus, saying, “We are ready — let us now go forth to take the kingdom.” To which Jesus replied, “May your wisdom equal your zeal and your courage atone for your ignorance.”

사도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가 그들과 함께 지냈던 즐겁고 아름다운 일생의 의의(意義)는 이해하였다.

제 8 장.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예수는 사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아셨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의 관념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가르침을 더 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영적 왕국의 관념을 다소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땅에서의 일시적 힘으로서의 다윗의 권좌를 되찾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으로 하늘의 왕국의 이전의 개념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확고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예수는 목요일 오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왕국의 관련사들에 대해 좀 더 설명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장장 네 시간에 걸친 수업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그 날 오후에 배웠던 것에 대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형 안드레에게 전했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게 재구성하여 요약한 것이다:

1.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에 동의하면서 인용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는 자신의 가르침들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신뢰함에 대한 그의 교훈들은 현대나 또는 어떤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에 있어서 하느님과 가깝게 사는 삶이라는 이상적인 원리를 포용하고 있다.

예수는 그 세 사람들에게 사도의 신분과 일반 제자의 신분으로부터 요구되는 점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는 12 사도들이 신중함과 예전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선-생각이 아니라 걱정함과 근심함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다.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다만 목수로서, 배-만드는 자로서, 어부였던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그리고 12사도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조심스런 조직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하셨다. 그는 세상은 그들의 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일생의 환경은 하느님의 자녀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신성한 섭리시대를 구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실천관행을 납득시키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

140:7.8 (1579.2) Though the apostles failed to comprehend much of his teaching, they did not fail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charmingly beautiful life he lived with them.

8. THURSDAY AFTERNOON ON THE LAKE

140:8.1 (1579.3) Jesus well knew that his apostles were not fully assimilating his teachings. He decided to give some special instruction to Peter, James, and John, hoping they would be able to clarify the ideas of their associates. He saw that, while some features of the idea of a spiritual kingdom were being grasped by the twelve, they steadfastly persisted in attaching these new spiritual teachings directly onto their old and entrenched literal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as a restoration of David's throne and the re-establishment of Israel as a temporal power on earth. Accordingly, on Thursday afternoon Jesus went out from the shore in a boat with Peter, James, and John to talk over the affairs of the kingdom. This was a four hours' teaching conference, embracing scores of questions and answers, and may most profitably be put in this record by reorganizing the summary of this momentous afternoon as it was given by Simon Peter to his brother, Andrew, the following morning:

140:8.2 (1579.4) 1. *Doing the Father's will.* Jesus' teaching to trust in the overcare of the heavenly Father was not a blind and passive fatalism. He quoted with approval, on this afternoon, an old Hebrew saying: "He who will not work shall not eat." He pointed to his own experience as sufficient commentary on his teachings. His precepts about trusting the Father must not be adjudged by the social or economic conditions of modern times or any other age. His instruction embraces the ideal principles of living near God in all ages and on all worlds.

140:8.3 (1579.5) Jesus made clear to the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quirements of apostleship and discipleship. And even then he did not forbid the exercise of prudence and foresight by the twelve. What he preached against was not forethought but anxiety, worry. He taught the active and alert submission to God's will. In answer to many of their questions regarding frugality and thriftiness, he simply called attention to his life as carpenter, boatmaker, and fisherman, and to his careful organization of the twelve. He sought to make it clear that the world is not to be regarded as an enemy; that the circumstances of life constitute a divine dispensation working along with the children of God.

140:8.4 (1579.6) Jesus had great difficulty in getting them to understand his personal practice of

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사도들도 그렇게 행해 준다면 그가 기뻐하실 것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악에 저항하거나 불공정이나 혹은 부상에 대해 항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릇된 일에 수동적으로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하며 정부가 때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의의 실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의 실천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보복, 원수를 갚겠다는 관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유감을 품는 것도 개탄하였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이거나 개인적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판단 아래에 맡겼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개별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 때까지의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인간이 형제신분이라는 도덕적 주장들을 기억하라.

악은 무익하다: 잘못된 보복으로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 악 자체의 무기로 악과 싸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신앙을 가져라—신성한 공의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2. 정치적 태도.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정부와 유대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해 지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들이 이들 어려움들에 어떤 식으로든지 말려드는 것을 것을 금하였다. 그는 언제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적들이 치논은 정치적 함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관심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확립하는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옆길로 전환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다른 것에 관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 일생에서, 항상 모든 시민법과 규정을 준수했다; 모든 대중적 가르침에서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무시하였다. 그는 자신이 오직, 사람의 내적세계 그리고 개인적 영적 일생의 원칙들에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세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정치적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재조직하려 오신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그랬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된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예수의 일생을 최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수고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nonresistance. He absolutely refused to defend himself, and it appeared to the apostles that he would be pleased if they would pursue the same policy. He taught them not to resist evil, not to combat injustice or injury, but he did not teach passive tolerance of wrongdoing. And he made it plain on this afternoon that he approved of the social punishment of evildoers and criminals, and that the civil government must sometimes employ force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in the execution of justice.

140:8.5 (1579.7) He never ceased to warn his disciples against the evil practice of *retaliation*; he made no allowance for revenge, the idea of getting even. He deplored the holding of grudges. He disallowed the idea of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He discountenanced the whole concept of private and personal revenge, assigning these matters to civil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to the judgment of God, on the other. He made it clear to the three that his teachings applied to the *individual*, not the state. He summarized his instructions up to that time regarding these matters, as:

140:8.6 (1580.1) Love your enemies — remember the moral claims of human brotherhood.

140:8.7 (1580.2) The futility of evil: A wrong is not righted by vengeance. Do not make the mistake of fighting evil with its own weapons.

140:8.8 (1580.3) Have faith — confidence in the eventual triumph of divine justice and eternal goodness.

140:8.9 (1580.4) 2. *Political attitude*. He cautioned his apostles to be discreet in their remarks concerning the strained relations then existing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the Roman government; he forbade them to become in any way embroiled in these difficulties. He was always careful to avoid the political snares of his enemies, ever making reply, "Render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He refused to have his attention diverted from his mission of establishing a new way of salvation; he would not permit himself to be concerned about anything else. In his personal life he was always duly observant of all civil laws and regulations; in all his public teachings he ignored the civic, social, and economic realms. He told the three apostles that he was concerned only with the principles of man's inner and personal spiritual life.

140:8.10 (1580.5) Jesus was not, therefore, a political reformer. He did not come to reorganize the world; even if he had done this, it would have been applicable only to that day and generation. Nevertheless, he did show man the best way of living, and no generation is exempt from the labor of discovering how best to adapt Jesus' life to its own problems. But never make the mistake of

가르침을 그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론이나 사회 또는 산업 체제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오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태도. 유대의 랍비들은 오랫동안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 논쟁해 왔다. 예수는 와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친절관념을 제시하였다. 이웃을 너무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이웃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드는 사랑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는 군중이 아니라 오직 개별존재에게 관심을 주었다. 예수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 연민을 가르치셨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사로잡힌 아들이었으며; 연민은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주(主)는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절대로 금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한다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공의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되어 있었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회의 식객(食客)들이나 전문적으로 구제를-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의견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악에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다음날 예수는 사도들의 재산은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다.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절제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이 보였다.

예수의 생활철학—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에서 영구적인 최고의 중심은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한편으로는 조상들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가정생활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무라고 하였지만, 가족관계가 신앙적 의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는 가족이 현세적인 제도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이 아버지의 뜻과 충돌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새롭고도 폭넓은 형제신분—하느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과 로마제국 전역에서는 이혼 실천 관행이 성행하고 있었다.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기를 거듭 거부하였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대부분 이혼에 관한 뚜렷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혼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진보된 이들 관념들을 고수하였다.

identifying Jesus' teachings with any political or economic theory, with any social or industrial system.

140:8.11 (1580.6) 3. *Social attitude.* The Jewish rabbis had long debated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Jesus came presenting the idea of active and spontaneous kindness, a love of one's fellow men so genuine that it expanded the neighborhood to include the whole world, thereby making all men one's neighbors. But with all this, Jesus was interested only in the individual, not the mass. Jesus was not a sociologist, but he did labor to break down all forms of selfish isolation. He taught pure sympathy, compassion. Michael of Nebadon is a mercy-dominated Son; compassion is his very nature.

140:8.12 (1580.7) The Master did not say that men should never entertain their friends at meat, but he did say that his followers should make feasts for the poor and the unfortunate. Jesus had a firm sense of justice, but it was always tempered with mercy. He did not teach his apostles that they were to be imposed upon by social parasites or professional alms-seekers. The nearest he came to making sociological pronouncements was to say,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140:8.13 (1580.8) He made it clear that indiscriminate kindness may be blamed for many social evils. The following day Jesus definitely instructed Judas that no apostolic funds were to be given out as alms except upon his request or upon the joint petition of two of the apostles. In all these matters it was the practice of Jesus always to say, "Be as wise as serpents but as harmless as doves." It seemed to be his purpose in all social situations to teach patience, tolerance, and forgiveness.

140:8.14 (1581.1) The family occupied the very center of Jesus' philosophy of life — here and hereafter. He based his teachings about God on the family, while he sought to correct the Jewish tendency to overhonor ancestors. He exalted family life as the highest human duty but made it plain that family relationships must not interfere with religious obligations.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amily is a temporal institution; that it does not survive death. Jesus did not hesitate to give up his family when the family ran counter to the Father's will. He taught the new and larger brotherhood of man — the sons of God. In Jesus' time divorce practices were lax in Palestine an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He repeatedly refused to lay down laws regarding marriage and divorce, but many of Jesus' early followers had strong opinions on divorce and did not hesitate to attribute them to him. All of the New Testament writers held to these more stringent and advanced ideas about divorce except John Mark.

4. 경제적 태도. 예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일하였고 사셨으며 거래하였다. 비록 그가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자주 주의를 기울이긴 하였지만, 경제 제도의 개혁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들로서는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단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말씀했을 뿐, 부와 재산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 공의와 산업적 공평성의 필요를 인식하였지만, 그것의 달성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열 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세상의 재물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회적 평등에 강한 신념을 가진 자였으며, 예수의 많은 가르침들을 자신의 개인적 믿음과 일치시켜 해석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개인적으로 지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해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그의 물질적 소유의 풍족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하였다. 그는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반기 가르침에서 대중에게 설교할 때에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 실수를 일으키는 유란시아의 일생의 관점의 많은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셨다. 예수는 절대로 경제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각각의 시대가 자신들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지금-현재 이 땅에 살고 계시더라도, 그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실 것이므로 대부분의 선남선녀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는 너희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갖추 수 있도록, 너희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홀로 따로 승고하게 남아 계실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과-같음으로 만들고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실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부가 아니라 그 부가 그것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였다.

5. 개인적 종교. 그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의 일생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더 잘 납득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일생을 사셨고, 그의 고유한 가르침들은 그 일생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시화될 때에만 납득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특성과 사랑 넘치는 개

140:8.15 (1581.2) 4. *Economic attitude.* Jesus worked, lived, and traded in the world as he found it. He was not an economic reformer, although he did frequently call attention to the injustice of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But he did not offer any suggestions by way of remedy. He made it plain to the three that, while his apostles were not to hold property, he was not preaching against wealth and property, merely its unequal and unfair distribution. He recognized the need for social justice and industrial fairness, but he offered no rules for their attainment.

140:8.16 (1581.3) He never taught his followers to avoid earthly possessions, only his twelve apostles. Luke, the physician, was a strong believer in social equality, and he did much to interpret Jesus' sayings in harmony with his personal beliefs. Jesus never personally directed his followers to adopt a communal mode of life; he made no pronouncement of any sort regarding such matters.

140:8.17 (1581.4) Jesus frequently warned his listeners against covetousness, declaring that “a man's happiness consists not in the abundance of his material possessions.” He constantly reiterated, “What shall it profit a man if he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He made no direct attack on the possession of property, but he did insist that it is eternally essential that spiritual values come first. In his later teachings he sought to correct many erroneous Urantia views of life by narrating numerous parables which he presented in the course of his public ministry. Jesus never intended to formulate economic theories; he well knew that each age must evolve its own remedies for existing troubles. And if Jesus were on earth today, living his life in the flesh, he would be a great disappointment to the majority of good men and women for the simple reason that he would not take sides in present-day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disputes. He would remain grandly aloof while teaching you how to perfect your inner spiritual life so as to render you manyfold more competent to attack the solution of your purely human problems.

140:8.18 (1581.5) Jesus would make all men Godlike and then stand by sympathetically while these sons of God solve their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t was not wealth that he denounced, but what wealth does to the majority of its devotees. On this Thursday afternoon Jesus first told his associates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140:8.19 (1581.6) 5. *Personal religion.* You, as did his apostles, should the better understand Jesus' teachings by his life. He lived a perfected life on Urantia, and his unique teaching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that life is visualized in its immediate background. It is his life, and not his

인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과 군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일생이다.

예수는 히브리의 선지자들이나 그리스의 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主)는 이들 위대한 선생들의 많은 좋은 말들을 인정하였지만, 그는 추가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람 의지의 자발적인 일치”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예수는 단지 종교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오직 영적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한번만이라도 그를 바라 볼 수 있었다면, 예수는 이 세상일들에 위대한 체험을 한 실제로 하나의 사람이었음을 단번에 알아 차렸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수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들을 거치면서 비뚤어지고 잘못 전해져 왔다; 너희들도 역시 주(主)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가 자신의 일생 속에서 목표했던 것은 장엄한 자아-존중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직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야만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충고하였다; 그가 실제로 목표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그는 성실함—순수한 진심—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성실성은 그가 성품을 평가하는 기본 덕목이었으며, 반면에 용기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그의 표어였고, 인내는 그의 이상적인 성품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종교적 용기, 담력, 영웅적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자신의 개인적 대표로서 어쩌서 소박하고 씩씩하며 대부분 어부 출신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는지 하는 이유이다.

예수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진정한 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그는 가르치실 때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였다; 악을 선전(宣傳)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도덕의 개혁가도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감각적 충동이 종교적 비난이나 법적 제재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음을 잘 아셨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의 몇 가지 경고는 주로 자부심, 잔인함, 억압, 위선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는 요한처럼 격렬하게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직한 가슴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셨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얽매어 있음을 납득하였다. 예수는 “먼저 좋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많이 강조하였다. 그는 그 세 사도들에게, 자신은 몇 가지의 특정한 선행들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전체의 일생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데서 동기를 가진 개인성과 더불어, 연민이 가득한 성격을 습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lessons to the twelve or his sermons to the multitudes, that will assist most in revealing the Father's divine character and loving personality.

140:8.20 (1582.1) Jesus did not attack the teachings of the Hebrew prophets or the Greek moralists. The Master recognized the many good things which these great teachers stood for, but he had come down to earth to teach something *additional*, “the voluntary conformity of man's will to God's will.” Jesus did not want simply to produce a *religious man*, a mortal wholly occupied with religious feelings and actuated only by spiritual impulses. Could you have had but one look at him, you would have known that Jesus was a real man of great experience in the things of this world. The teachings of Jesus in this respect have been grossly perverted and much misrepresented all down through th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you have also held perverted ideas about the Master's meekness and humility. What he aimed at in his life appears to have been a *superb self-respect*. He only advised man to humble himself that he might become truly exalted; what he really aimed at was true humility toward God. He placed great value upon sincerity — a pure heart. Fidelity was a cardinal virtue in his estimate of character, while *courage* was the very heart of his teachings. “Fear not” was his watchword, and patient endurance his ideal of strength of character. The teachings of Jesus constitute a religion of valor, courage, and heroism. And this is just why he chose as his personal representatives twelve commonplace men, the majority of whom were rugged, virile, and manly fishermen.

140:8.21 (1582.2) Jesus had little to say about the social vices of his day; seldom did he make reference to moral delinquency. He was a positive teacher of true virtue. He studiously avoided the negative method of imparting instruction; he refused to advertise evil. He was not even a moral reformer. He well knew, and so taught his apostles, that the sensual urges of mankind are not suppressed by either religious rebuke or legal prohibitions. His few denunciations were largely directed against pride, cruelty, oppression, and hypocrisy.

140:8.22 (1582.3) Jesus did not vehemently denounce even the Pharisees, as did John. He knew many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honest of heart; he understood their enslaving bondage to religious traditions. Jesus laid great emphasis on “first making the tree good.” He impressed the three that he valued the whole life, not just a certain few special virtues.

140:8.23 (1582.4) The one thing which John gained from this day's teaching was that the heart of Jesus' religion consisted in the acquirement of a compassionate character coupled with a personality motivated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실제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념을 파악했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형성하였다.

야고보는 예수가 그의 지상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미 완성된 하늘왕국의 시민들이 된 것처럼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감격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제자들과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 맞추지 말라고 끊임없이 훈계하였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고 분리된 한 개별존재로서 각각의 혼이 각자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이 허용되기를 원하였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중의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새롭고도 더욱 나는 일생위에서 갓난아이처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중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자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였다.

세 사도들은 이 날 오후, 주(主)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반성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음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예수의 시절 이전과 이후에 있던 모든 종교는,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인 자아-검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의 일생의 철학은 종교적 내면-성찰이 없다. 목수의 아들은 성격 형성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하늘의 왕국은 거자씨와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격 성장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는 거만한 자기중심주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자아-분석을 금지하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왕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개인적 신념에 달려 있다. 왕국으로 가는 점진적인 상승에 참여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代價)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사려는 비싼 진주와 같다.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을 위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다. 그의 종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칙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그의 시절 동안에),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일생과 가르침은 온 세상의 모든 세대에 영적 인도와 도덕적 가르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는 이상적인 유산으로 후세에 전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서서, 그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종교가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 두 사도들에게는 종교가 그

heaven.

140:8.24 (1582.5) Peter grasped the idea that the gospel they were about to proclaim was really a fresh beginning for the whole human race. He conveyed this impression subsequently to Paul, who formulated therefrom his doctrine of Christ as “the second Adam.”

140:8.25 (1582.6) James grasped the thrilling truth that Jesus wanted his children on earth to live as though they were already citizens of the completed heavenly kingdom.

140:8.26 (1582.7) Jesus knew men were different, and he so taught his apostles. He constantly exhorted them to refrain from trying to mold the disciples and believers according to some set pattern. He sought to allow each soul to develop in its own way, a perfecting and separate individual before God. In answer to one of Peter's many questions, the Master said: “I want to set men free so that they can start out afresh as little children upon the new and better life.” Jesus always insisted that true goodness must be unconscious, in bestowing charity not allowing the left hand to know what the right hand does.

140:8.27 (1583.1) The three apostles were shocked this afternoon when they realized that their Master's religion made no provision for spiritual self-examination. All religions before and after the times of Jesus, even Christianity, carefully provide for conscientious self-examination. But not so with the religion of Jesus of Nazareth. Jesus' philosophy of life is without religious introspection. The carpenter's son never taught character *building*; he taught character *growth*, declaring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But Jesus said nothing which would proscribe self-analysis as a prevention of conceited egotism.

140:8.28 (1583.2) The right to enter the kingdom is conditioned by faith, personal belief. The cost of remaining in the progressive ascent of the kingdom is the pearl of great price, in order to possess which a man sells all that he has.

140:8.29 (1583.3) The teaching of Jesus is a religion for everybody, not alone for weaklings and slaves. His religion never became crystallized (during his day) into creeds and theological laws; he left not a line of writing behind him. His life and teachings were bequeathed the universe as an inspirational and idealistic inheritance suitable for the spiritual guidance and moral instruction of all ages on all worlds. And even today, Jesus' teaching stands apart from all religions, as such, albeit it is the living hope of every one of them.

140:8.30 (1583.4) Jesus did not teach his apostles that religion is man's only earthly pursuit; that was the Jewish idea of serving God. But he did insist that religion was the exclusive business of the twelve. Jesus taught nothing to deter his believers from

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문화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전통에 얽매어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적 학파들로부터만 멀리 떨어졌다. 그는 개방적이며, 가슴이 넓고, 박식했으며, 참을성이 많았다. 자아-의식이 강한 연민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主)는 그 자신의 세대나 혹은 뒤이어지는 어느 세대의 비(非)종교적 문제를 위해서,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예수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삶의 근원성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자극하기 원하였다; 그는 인간 종족의 저변에 깔려있는 영구적인 영적 필요에만 순전히 스스로를 깊이 관여시켰다. 그는 하느님과 동등한 선을 계시하였다. 그는 사랑—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을 신성한 이상과 그리고 영원한 실체로 드높였다.

주(主)는 사람 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의지—진리를 알고, 온정을 체험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수용능력을 나누어 주려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기 위해 왔다.

제 9 장. 헌납식이 있던 날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함께 헌신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성직수임식을 행했던 산지(山地)로 되돌아가셨으며; 그곳에서 길고도 훌륭한 감격적인 사적인 격려 말씀을 한 후에, 열 두 사도들의 헌납식을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산허리에서 사도들을 자기 주위에 모아놓으시고, 자신이 세상에 그들만 남겨두고 떠나야만 할 그 날을 대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겼다. 이때에는 더 이상의 새로운 가르침은 없었고, 단지 환담과 교제를 나누었다.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되었던 성직수임식 설교의 많은 특성들을 회고하였고, 그런 다음 제자들을 한 사람씩 앞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임명하였다. 주(主)의 헌납식의 훈시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나아가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통 받는 자를 보살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는 사도들에게 돈이나 여벌의 옷을 지니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수고한 사람은 자기 품삷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 적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들과 총독들 앞에 불러갈

the pursuit of genuine culture; he only detracted from the tradition-bound religious schools of Jerusalem. He was liberal, big-hearted, learned, and tolerant. Self-conscious piety had no place in his philosophy of righteous living.

140:8.31 (1583.5) The Master offered no solutions for the nonreligious problems of his own age nor for any subsequent age. Jesus wished to develop spiritual insight into eternal realities and to stimulate initiative in the originality of living; he concerned himself exclusively with the underlying and permanent spiritual needs of the human race. He revealed a goodness equal to God. He exalted love — truth, beauty, and goodness — as the divine ideal and the eternal reality.

140:8.32 (1583.6) The Master came to create in man a new spirit, a new will — to impart a new capacity for knowing the truth, experiencing compassion, and choosing goodness — the will to be in harmony with God's will, coupled with the eternal urge to become perfect, even as the Father in heaven is perfect.

9. THE DAY OF CONSECRATION

140:9.1 (1583.7) The next Sabbath day Jesus devoted to his apostles, journeying back to the highland where he had ordained them; and there, after a long and beautifully touching personal message of encouragement, he engaged in the solemn act of the consecration of the twelve. This Sabbath afternoon Jesus assembled the apostles around him on the hillside and gave them into the hands of his heavenly Father in preparation for the day when he would be compelled to leave them alone in the world. There was no new teaching on this occasion, just visiting and communion.

140:9.2 (1584.1) Jesus reviewed many features of the ordination sermon, delivered on this same spot, and then, calling them before him one by one, he commissioned them to go forth in the world as his representatives. The Master's consecration charge wa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Liberate spiritual captives, comfort the oppressed, and minister to the afflicted.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140:9.3 (1584.2) Jesus advised them to take neither money nor extra clothing, saying,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hire.” And finally he said: “Behold I send you forth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be you therefore as wise as serpents and as harmless as doves. But take heed, for your enemies will bring you up before their councils, while in their synagogues they will castigate you. Before governors and rulers you will be brought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 앞에 끌어다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때에 그가 너희를 통해 말할 것이다. 너희들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영이 너희보다 먼저 세상 모든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현존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런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함께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다.

because you believe this gospel, and your very testimony shall be a witness for me to them. And when they lead you to judgment, be not anxious about what you shall say, for the spirit of my Father indwells you and will at such a time speak through you. Some of you will be put to death, and before you establish the kingdom on earth, you will be hated by many peoples because of this gospel; but fear not; I will be with you, and my spirit shall go before you into all the world. And my Father's presence will abide with you while you go first to the Jews, then to the gentiles.”

140:9.4 (1584.3) And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they journeyed back to their home in Zebedee's house.

제 10 장. 헌납식 이후의 밤

그 날 밤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예수는 사도들에게 집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장시간 이야기를 하였다. 제자들은 정의로움—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써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왕국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고 하였다.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主)가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하였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온 구원은 오직 믿는다는 것과 단순하고도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은 옛 생활방식을 참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세례를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회개를 권고하지만, 그러나 이미 왕국으로 들어갈 진실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 하느님의 자녀들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로서는, 왕국에 있어서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세상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로움을 행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큰 고충은, 그들이 종교적 진리의 높은 이상과 영적 원리를 개인적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바꾸려는 경향이였다. 예수는 혼의 태도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곤 하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의 규칙들로 해석하려고 계속 고집하였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이 주(主)가 한 말을 기억할 때, 그들은 그가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틀림없이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 자신이 가르침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점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동화

10. THE EVENING AFTER THE CONSECRATION

140:10.1 (1584.4) That evening while teaching in the house, for it had begun to rain, Jesus talked at great length, trying to show the twelve what they must *be*, not what they must *do*. They knew only a religion that imposed the *doing* of certain things as the means of attaining righteousness — salvation. But Jesus would reiterate, “In the kingdom you must be righteous in order to do the work.” Many times did he repeat, “Be you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All the while was the Master explaining to his bewildered apostles that the salvation which he had come to bring to the world was to be had only by *believing*, by simple and sincere faith. Said Jesus: “John preached a baptism of repentance, sorrow for the old way of living. You are to proclaim the baptism of fellowship with God. Preach repentance to those who stand in need of such teaching, but to those already seeking sincere entrance to the kingdom, open the doors wide and bid them enter into the joyous fellowship of the sons of God.” But it was a difficult task to persuade these Galilean fishermen that, in the kingdom, *being* righteous, by faith, must precede *doing* righteousness in the daily life of the mortals of earth.

140:10.2 (1584.5) Another great handicap in this work of teaching the twelve was their tendency to take highly idealistic and spiritual principles of religious truth and remake them into concrete rules of personal conduct. Jesus would present to them the beautiful spirit of the soul's attitude, but they insisted on translating such teachings into rules of personal behavior. Many times, when they did make sure to remember what the Master said, they were almost certain to forget what he did *not* say. But they slowly assimilated his teaching

되었다. 그의 언어로 행한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사도들은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았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주(主)가 멀리-퍼지는 우주의 모든 세상들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적 영감을 주는 일생의 삶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깨달지 못하였다. 때때로 예수가 그들에게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가 일은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 일은 그가 창조한 방대한 다른 세상들도 위해서라는 관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예수가 그의 지상 일생을 유란시아에서 사셨던 것은 이 세상의 남녀들에게만 필사자의 삶의 개인적 모범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들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고차원의 영적이고 영감적인 이상(理想)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

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에 입장을 허락받을 수 있기 전에,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짓 신지자들에게 속지도 말며 또한 돼지 앞에 우리들의 진주를 던지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문자로 만들려는 데에 언제까지나 고집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했을 때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믿는 것을 무작정 기꺼워 하라는 것이나, 즐거움을 주는 낯선 이를 재빠르게 신뢰하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예증에서 너희가 얻어야만 한다고 바랐던 것은, 어린이-아버지 그 관계였다. 너희는 어린이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자 찾아 나서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왕국인 것이다. 모든 정상적 어린이와 그 아버지 사이에는 납득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보장하는 자연본성적인 애정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위하여 거래해 보려고 마음먹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가로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며 전도하려는 복음은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그 구원이 바로, 이 영원한 어린이-아버지 관계의 신앙-실현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징은, 하느님께 대한 개별존재의 개인적 관계—바로 이 자녀-아버지 관계—에서 기원되는 그의 철학에서의 바로 그 도덕성이다. 예수는 국가나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별존재에게 중점을 두셨다. 저녁식사 동안에, 예수는 마태와 이야기하다가 어떤 행동의 도덕성은 개별존재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수의 도덕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예수가 다시 규정한 황금률은 능동적인 사회적 친교를 요구하였다; 구식의 부정적인 규율은 고립됨으로써 지켜졌다. 예수는 도덕성의 모든 규칙과 의례를 제거하고 이를 영적 사고와 진실로 의로운 삶이라는 장엄한 차원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러한 예수의 새 종교에 실천적인 관계성이

because Jesus was all that he taught. What they could not gain from his verbal instruction, they gradually acquired by living with him.

140:10.3 (1585.1) It was not apparent to the apostles that their Master was engaged in living a life of spiritual inspiration for every person of every age on every world of a far-flung universe. Notwithstanding what Jesus told them from time to time, the apostles did not grasp the idea that he was doing a work on this world but for all other worlds in his vast creation. Jesus lived his earth life on Urantia, not to set a personal example of mortal living for the men and women of this world, but rather to create a *high spiritual and inspirational ideal* for all mortal beings on all worlds.

140:10.4 (1585.2) This same evening Thomas asked Jesus: “Master, you say that we must become as little children before we can gain entrance to the Father’s kingdom, and yet you have warned us not to be deceived by false prophets nor to become guilty of casting our pearls before swine. Now, I am honestly puzzled. I cannot understand your teaching.” Jesus replied to Thomas: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Ever you insist on making literal all that I teach. When I asked you to become as little children as the price of entering the kingdom, I referred not to ease of deception, mere willingness to believe, nor to quickness to trust pleasing strangers. What I did desire that you should gather from the illustration was the child-father relationship. You are the child, and it is your Father’s kingdom you seek to enter. There is present that natural affection between every normal child and its father which insures an understanding and loving relationship, and which forever precludes all disposition to bargain for the Father’s love and mercy. And the gospel you are going forth to preach has to do with a salvation growing out of the faith-realization of this very and eternal child-father relationship.”

140:10.5 (1185.3) The one characteristic of Jesus’ teaching was that the *morality* of his philosophy originated in the personal relation of the individual to God — this very child-father relationship. Jesus placed emphasis on the *individual*, not on the race or nation. While eating supper, Jesus had the talk with Matthew in which he explained that the morality of any act is determined by the individual’s motive. Jesus’ morality was always positive. The golden rule as restated by Jesus demands active social contact; the older negative rule could be obeyed in isolation. Jesus stripped morality of all rules and ceremonies and elevated it to majestic levels of spiritual thinking and truly righteous living.

140:10.6 (1585.4) This new religion of Jesus was not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는 실천적인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개인적 종교체험의 자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영의 열매를 현시하는 것처럼, 혼의 내적 체험의 자연스러운 결실들이었다.

예수가 마태와 이야기하는 것을 완결하자 시몬 켈로페가, “주(主)여,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예수가 이에 대답하였다: “그렇다. 시몬아,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너희가 선포하려는 그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교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새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진리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형제들로 대하라고 가르치셨다.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主)는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종교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는 사람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도덕성을 가르쳤다.

요한이 예수께, “주(主)여, 하늘의 왕국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이 세 가지 본질들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하느님의 주권성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 하느님과의 아들신분에 대한 진리 안에서 믿음이요; 셋째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하느님을 닮아 가는—최극 인간의 소망에 대한 효력성 안에서의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모든 필사자들은 구원의 이 세 가지 본질 모두를 신앙으로 얻게 된다.”

[140:10.10]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 주간이 끝나고, 그들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without its practical implications, but whatever of practical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value there is to be found in his teaching is the natural outworking of this inner experience of the soul as it manifest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spontaneous daily ministry of genuin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140:10.7 (1585.5) After Jesus and Matthew had finished talking, Simon Zelotes asked, “But, Master, are *all* men the sons of God?” And Jesus answered: “Yes, Simon, all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at is the good news you are going to proclaim.” But the apostles could not grasp such a doctrine; it was a new, strange, and startling announcement. And it was because of his desire to impress this truth upon them that Jesus taught his followers to treat all men as their brothers.

140:10.8 (1585.6) In response to a question asked by Andrew, the Master made it clear that the morality of his teaching was inseparable from the religion of his living. He taught morality, not from the *nature* of man, but from the *relation* of man to God.

140:10.9 (1585.7) John asked Jesus, “Master, what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Jesus answered: “The kingdom of heaven consists in these three essentials: first, recognition of the fact of the sovereignty of God; second, belief in the truth of sonship with God; and third, faith i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reme human desire to do the will of God — to be like God. And this i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hat by faith every mortal may have all these essentials of salvation.”

140:10.10 (1586.1) And now the week of waiting was over, and they prepared to depart on the morrow for Jerusalem.

제 141 편 대중을 위한 일의 시작

⇨ 140

유랜시아 책

14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1 편 대중을 위한 일의 시작

섹션

소개

제 1 장. 갈릴리를 떠남

제 2 장. 하느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제 3 장. 아마투스에 체류함

제 4 장.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제 5 장. 영적 합일

제 6 장. 아마투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제 7 장.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제 8 장. 여리고 에서의 일

제 9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소개

그 주일의 첫날인 서기 27년 1월 19일에 예수와 12사도들은 벳세다에 있던 그들의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 12명은 주(主)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으며 단지 4월에 있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자기들이 요단 계곡을 거쳐서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사도들의 가족들과 다른 제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가는 그들에게 작별과 성공을 빌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베대의 집을 정오가 될 때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主)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를 찾으러 나섰다. 얼마 후에 그는 해변 아래쪽에서 배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발견했으며, 그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12사도들은 종종 주(主)가 근심에 차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고, 그가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드레는 자기들의 예루살렘 출발을 앞두고 주(主)가 그렇게 상

PAPER 141

BEGINNING THE PUBLIC WORK

SECTIONS

Introduction

1. Leaving Galilee

2. God's Law and the Father's Will

3. The Sojourn at Amathus

4. Teaching about the Father

5. Spiritual Unity

6. Last Week at Amathus

7. At Bethany Beyond Jordan

8. Working in Jericho

9. Departing for Jerusalem

INTRODUCTION

141:0.1 (1587.1)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January 19, A.D. 27,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made ready to depart from their headquarters in Bethsaida. The twelve knew nothing of their Master's plans except that they were going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Passover feast in April, and that it was the intention to journey by way of the Jordan valley. They did not get away from Zebedee's house until near noon because the families of the apostles and others of the disciples had come to say good-bye and wish them well in the new work they were about to begin.

141:0.2 (1587.2) Just before leaving, the apostles missed the Master, and Andrew went out to find him. After a brief search he found Jesus sitting in a boat down the beach, and he was weeping. The twelve had often seen their Master when he seemed to grieve, and they had beheld his brief seasons of serious preoccupation of mind, but none of them had ever seen him weep. Andrew was somewhat startled to see the Master thus affected on the eve of their departure for

심해 계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主)여,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저희들 중의 누구로 인하여 상심하였습니까?" 예수는 안드레와 함께 12사도들에게로 돌아가시면서 대답하였다: "너희 중의 누구도 나를 상심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진 것은 단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식구 중에서 아무도 우리를 전송하러 오겠다고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루트는 오빠인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자부심과 실망과 오해와 감정이 상한 결과로 빠진 하찮은 분개심으로 그를 멀리하고 있었다.

제 1 장. 갈릴리를 떠남

가버나움은 티베리아스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체와 그밖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예수는 헤롯이 머지않아 자신의 일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해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의 집단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사도 집단의 여정을 따르지 말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뒤에 남아 있기로 동의는 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며칠 뒤에 주(主)를 뒤쫓아 갔다.

예수와 사도들만이 여행을 한 첫날에 그들은 타리케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그 날 밤을 지냈다. 다음날 그들은 일 년 전에 요한이 설교를 하였고 예수가 세례를 받아들였던 장소인 펠라 근처의 요단강까지 여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2주 이상이나 머물렀다. 첫 주일의 주말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12사도가 거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카폴리스, 페레아, 유대에서부터 모여들었다.

예수는 대중(大衆)설교를 하지 않았다. 안드레는 군중들을 오전 오후 집회로 나누어서 그들을 위한 설교자를 임명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가 12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새로운 가르침은 주시지 않고 단지 그 전의 가르침들을 검토하였고 많은 질문들에 답변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밤에 그는 12사도들에게 이 장소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서 그가 보냈던 40일 간에 관해 얘기하였다.

페레아와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 대다수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도 요한의 가르침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그래서 새로 된 제자들에게도 이때에는 세례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만약 예수가 진정으로 요한이 공표

Jerusalem, and he ventured to approach Jesus and ask: "On this great day, Master, when we are to depart for Jerusalem to proclaim the Father's kingdom, why is it that you weep? Which of us has offended you?" And Jesus, going back with Andrew to join the twelve, answered him: "No one of you has grieved me. I am saddened only because none of my father Joseph's family have remembered to come over to bid us Godspeed." At this time Ruth was on a visit to her brother Joseph at Nazareth. Other members of his family were kept away by pride, disappointment, misunderstanding, and petty resentment indulged as a result of hurt feelings.

1. LEAVING GALILEE

141:1.1 (1587.3) Capernaum was not far from Tiberias, and the fame of Jesus had begun to spread well over all of Galilee and even to parts beyond. Jesus knew that Herod would soon begin to take notice of his work; so he thought best to journey south and into Judea with his apostles. A company of over one hundred believers desired to go with them, but Jesus spoke to them and besought them not to accompany the apostolic group on their way down the Jordan. Though they consented to remain behind, many of them followed after the Master within a few days.

141:1.2 (1587.4) The first day Jesus and the apostles only journeyed as far as Tarichea, where they rested for the night. The next day they traveled to a point on the Jordan near Pella where John had preached about one year before, and where Jesus had received baptism. Here they tarried for more than two weeks, teaching and preaching. By the end of the first week several hundred people had assembled in a camp near where Jesus and the twelve dwelt, and they had come from Galilee, Phoenicia, Syria, the Decapolis, Perea, and Judea.

141:1.3 (1588.1) Jesus did no public preaching. Andrew divided the multitude and assigned the preachers for the forenoon and afternoon assemblies; after the evening meal Jesus talked with the twelve. He taught them nothing new but reviewed his former teaching and answered their many questions. On one of these evenings he told the twelve something about the forty days which he spent in the hills near this place.

141:1.4 (1588.2) Many of those who came from Perea and Judea had been baptized by John and were interested in finding out more about Jesus' teachings. The apostles made much progress in teaching the disciples of John inasmuch as they did not in any way detract from John's preaching, and since they did not at this time even baptize their new disciples. But it was always a stumbling

했었던 그 모든 것이라면, 그가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영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 주지 않았는지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안드레는 자기 동료 사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야 하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예수의 대중(大衆) 사명활동의 첫 해 동안에는, 그의 추종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아들였던 자들이었다. 서기 27년인 이 해의 전부는 페레아와 유대 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며 조용하게 지나갔다.

제 2 장. 하느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펠라를 떠나기 전날 밤, 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왕국에 관해 좀 더 가르치셨다.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던 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를 한가운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권역의 법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온 세계의 법을 제정하고, 유대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서 영화롭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납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진실로, 이 왕국에는 한 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신하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그 변환되어지는 진리이다. 내 일생 안에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현시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이다; 그는 우주들을 넘어 우주들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법을 선포한다. 또한 아버지는 필사자 사람들의 혼 안에서 살도록 그가 보내 온 영(靈)에 의하여,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왕국의 신하일 때, 너희는 참으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되어졌으나; 내가 선포하러 온 왕국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는 너희는 힘이 가득한 왕의 법을 복종하는-신하로 너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성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들로 보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왕국 안에 거의 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

stone to John's followers that Jesus, if he were all that John had announced, did nothing to get him out of prison. John's disciples never could understand why Jesus did not prevent the cruel death of their beloved leader.

141:1.5 (1588.3) From night to night Andrew carefully instructed his fellow apostles in the delicate and difficult task of getting along smoothly with the followers of John the Baptist. During this first year of Jesus' public ministry more than three fourths of his followers had previously followed John and had received his baptism. This entire year of A.D. 27 was spent in quietly taking over John's work in Perea and Judea.

2. GOD'S LAW AND THE FATHER'S WILL

141:2.1 (1588.4) The night before they left Pella, Jesus gave the apostles some further instruction with regard to the new kingdom. Said the Master: "You have been taught to look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now I come announcing that this long-looked-for kingdom is near at hand, even that it is already here and in our midst. In every kingdom there must be a king seated upon his throne and decreeing the laws of the realm. And so have you developed a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as a glorified rule of the Jewish people over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th Messiah sitting on David's throne and from this place of miraculous power promulgating the laws of all the world. But, my children, you see not with the eye of faith, and you hear no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I declare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realization and acknowledgment of God's rule within the hearts of men. True, there is a King in this kingdom, and that King is my Father and your Father. We are indeed his loyal subjects, but far transcending that fact is the transforming truth that we are his sons. In my life this truth is to become manifest to all. Our Father also sits upon a throne, but not one made with hands. The throne of the Infinite is the eternal dwelling place of the Father in the heaven of heavens; he fills all things and proclaims his laws to universes upon universes. And the Father also rules within the hearts of his children on earth by the spirit which he has sent to live within the souls of mortal men.

141:2.2 (1588.5) "When you are the subjects of this kingdom, you indeed are made to hear the law of the Universe Ruler; but when, becaus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you faith-discover yourselves as sons, you henceforth look not upon yourselves as law-subject creatures of an all-powerful king but as privileged sons of a loving and divine Fath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en the Father's will is your law, you are hardly in the kingdom. But when the

정으로 너희의 뜻이 될 때에는, 그로서 왕국은 너희 안에 세워진 체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고상한 노예적인 신하이지만; 신성한 아들관계의 새 복음을 너희가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뜻이 되며 너희는 왕국의 해방된 아들,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오른다."

사도들 중에서 몇몇이 이 가르침의 무언가를 파악했지만, 야고보 세베대를 제외하고는, 이 엄청난 발표의 모든 의의(意義)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었고 훗날 봉사기간 내내 그들의 사명활동을 기쁘게 만들었다.

제 3 장. 아마투스에 체류함

주(主)와 사도들은 아마투스 근처에서 거의 3주간이나 머물렀다. 사도들은 군중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설교하는 것을 계속하였고 예수님은 각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였다. 수요일 노는 시간이 계속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주에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두 명씩의 사도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 예배봉사동안에는 모두가 같이 일을 하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중 설교의 대부분을 하였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별적인 일을 많이 하였고 질문자들의 특별 모임을 위한 학급을 수행하였다;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 일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 마태, 유다는 3인의 일반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들 각자는 종교적인 일도 상당히 하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임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그의 사도 연관-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루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임시적이거나 다소간의 합의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운영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회의들 중의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전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안드레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다: "주인이 그의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다."

주(主)는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을 현

Father's will becomes truly your will, then are you in very truth in the kingdom because the kingdom has thereby become an established experience in you. When God's will is your law, you are noble slave subjects; but when you believe in this new gospel of divine sonship, my Father's will becomes your will, and you are elevated to the high position of the free children of God, liberated sons of the kingdom."

141:2.3 (1589.1) Some of the apostles grasped something of this teaching, but none of them comprehended the full significance of this tremendous announcement, unless it was James Zebedee. But these words sank into their hearts and came forth to gladden their ministry during later years of service.

3. THE SOJOURN AT AMATHUS

141:3.1 (1589.2) The Master and his apostles remained near Amathus for almost three weeks. The apostles continued to preach twice daily to the multitude, and Jesus preached each Sabbath afternoon. It became impossible to continue the Wednesday playtime; so Andrew arranged that two apostles should rest each day of the six days in the week, while all were on duty during the Sabbath services.

141:3.2 (1589.3) Peter, James, and John did most of the public preaching. Philip, Nathaniel, Thomas, and Simon did much of the personal work and conducted classes for special groups of inquirers; the twins continued their general police supervision, while Andrew, Matthew, and Judas developed into a general managerial committee of three, although each of these three also did considerable religious work.

141:3.3 (1589.4) Andrew was much occupied with the task of adjusting the constantly recurring misunderstandings and disagreements between the disciples of John and the newer disciples of Jesus. Serious situations would arise every few days, but Andrew, with the assistance of his apostolic associates, managed to induce the contending parties to come to some sort of agreement, at least temporarily. Jesus refused to participate in any of these conferences; neither would he give any advice about the proper adjustment of these difficulties. He never once offered a suggestion as to how the apostles should solve these perplexing problems. When Andrew came to Jesus with these questions, he would always say: "It is not wise for the host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troubles of his guests; a wise parent never takes sides in the petty quarrels of his own children."

141:3.4 (1589.5) The Master displayed great wisdom and manifested perfect fairness in all of his

시하였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主)이었다; 매력과 힘이 병합된 그의 개인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관-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고된 생활과 방랑의 생활 그리고 집이 없는 생활에는, 미묘한 위엄 있는 감화력이 있었다. 그의 가르침에서의 권위 있는 태도, 명쾌한 논리, 추론의 강한 힘, 현명한 통찰력, 주의 깊은 그의 마음, 견줄 데 없는 자태, 숭고한 관용 속에는 지적(知的) 매력과 영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단순했고 남자다웠으며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主)의 현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육체적 그리고 지적 영향력과 더불어, 거기에는 또한 그의 개인성과 연관되기 시작했던 모든 그러한 존재의 영적 매력들—참을성, 부드러움, 온화함, 관대함, 그리고 겸손함—도 있었다.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강하고 힘찬 개인성이었다; 그는 지적인 힘이자 영적(靈的) 요새(要塞)였다. 그의 개인성은 그의 추종자 가운데 영적으로 따르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임무를 맡은 대장, 역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主)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主)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습은 위엄이 깃든 남자다움이었다; 그는 선하였지만, 꾸밈이 없었다. 예수는 상냥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면서 신비적인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감격이 일어나도록 역동적이었다. 그는 호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한 행동을 행하였다.

주(主)는 결코, "나태한 너희 모든 자들과 몽상가인 너희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말씀하기를, "수고하며 일하는 너희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영적인 강한 힘을 주며—쉬게 할 것이다." 주(主)의 멍에는, 참으로, 쉬운 것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모든 개별존재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메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는 희생, 곧 자부심과 이기심에 대한 희생으로, 정복을 묘사 하였다.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모든 원한, 불평, 분노, 그리고 이기적 힘과 복수에 대한 욕정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묘사하려고 뜻하였다. 그리고 그가 "악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나중에,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사악한 불의와 가까이 지내라는 조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그는 용서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개

dealings with his apostles and with all of his disciples. Jesus was truly a master of men; he exercised great influence over his fellow men because of the combined charm and force of his personality. There was a subtle commanding influence in his rugged, nomadic, and homeless life. There was intellectual attractiveness and spiritual drawing power in his authoritative manner of teaching, in his lucid logic, his strength of reasoning, his sagacious insight, his alertness of mind, his matchless poise, and his sublime tolerance. He was simple, manly, honest, and fearless. With all of this physical and intellectual influence manifest in the Master's presence, there were also all those spiritual charms of being which have become associated with his personality — patience, tenderness, meekness, gentleness, and humility.

141:3.5 (1589.6) Jesus of Nazareth was indeed a strong and forceful personality; he was an intellectual power and a spiritual stronghold. His personality not only appealed to the spiritually minded women among his followers, but also to the educated and intellectual Nicodemus and to the hardy Roman soldier, the captain stationed on guard at the cross, who, when he had finished watching the Master die, said, "Truly, this was a Son of God." And red-blooded, rugged Galilean fishermen called him Master.

141:3.6 (1590.1) The pictures of Jesus have been most unfortunate. These paintings of the Christ have exerted a deleterious influence on youth; the temple merchants would hardly have fled before Jesus if he had been such a man as your artists usually have depicted. His was a dignified manhood; he was good, but natural. Jesus did not pose as a mild, sweet, gentle, and kindly mystic. His teaching was thrillingly dynamic. He not only *meant well*, but he went about actually *doing good*.

141:3.7 (1590.2) The Master never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indolent and all who are dreamers." But he did many times say,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I will give you rest — spiritual strength." The Master's yoke is, indeed, easy, but even so, he never imposes it; every individual must take this yoke of his own free will.

141:3.8 (1590.3) Jesus portrayed conquest by sacrifice, the sacrifice of pride and selfishness. By showing mercy, he meant to portray spiritual deliverance from all grudges, grievances, anger, and the lust for selfish power and revenge. And when he said, "Resist not evil," he later explained that he did not mean to condone sin or to counsel fraternity with iniquity. He intended the more to teach forgiveness, to "resist not evil treatment of

인성에 대한 악한 대접에 저항하거나 개인적 존엄성에서의 사람의 감성에 대한 악한 모욕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one's personality, evil injury to one's feelings of personal dignity."

제 4 장.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4. TEACHING ABOUT THE FATHER

아마투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다; 그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는 것, 땅위의 그의 죄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처벌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는, 위대하고 최극의 장부 기입자이거나,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관 자리에 앉아 모든 창조체의 올바른 심판으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죄나 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느님을, 비록 민족의 아버지지만, 모든 이의 왕으로 이해해 왔었지만, 이전에는 많은 숫자의 필사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신 개별존재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관념을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141:4.1 (1590.4) While sojourning at Amathus, Jesus spent much time with the apostles instructing them in the new concept of God; again and again did he impress upon them that *God is a Father*, not a great and supreme bookkeeper who is chiefly engaged in making damaging entries against his erring children on earth, recordings of sin and evil to be used against them when he subsequently sits in judgment upon them as the just Judge of all creation. The Jews had long conceived of God as a king over all, even as a Father of the nation, but never before had large numbers of mortal men held the idea of God as a loving Father of the *individual*.

"왕국의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종교—나의 복음—는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141:4.2 (1590.5) In answer to Thomas's question, "Who is this God of the kingdom?" Jesus replied: "God is your Father, and religion — my gospel — is nothing more nor less than the believing recognition of the truth that you are his son. And I am here among you in the flesh to make clear both of these ideas in my life and teachings."

예수는 또한 사도들의 마음이 종교적 의무로 희생동물을 제공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애를 쓰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희생물을 제공하는 종교에 젖어 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더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主)는 자기 가르침에 지치지 않았다. 한 가지 설명으로 모든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하면, 그는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설명을 목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유를 들곤 하였다.

141:4.3 (1590.6) Jesus also sought to free the minds of his apostles from the idea of offering animal sacrifices as a religious duty. But these men, trained in the religion of the daily sacrifice, were slow to comprehend what he meant. Nevertheless, the Master did not grow weary in his teaching. When he failed to reach the minds of all of the apostles by means of one illustration, he would restate his message and employ another type of parable for purposes of illumination.

바로 이 시기에, 예수는 12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인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일"에 관해 좀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주(主)는 그들에게 전인(全人)—개별 남녀를 형성하는 몸, 마음, 영의 연합—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인간의 질병으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살피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의 것들을 인식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141:4.4 (1590.7) At this same time Jesus began to teach the twelve more fully concerning their mission "to comfort the afflicted and minister to the sick." The Master taught them much about the whole man — the union of body, mind, and spirit to form the individual man or woman. Jesus told his associates about the three forms of affliction they would meet and went on to explain how they should minister to all who suffer the sorrows of human sickness. He taught them to recognize:

1. 육신의 질병—보통 육체적인 병이라고 간주되는 그러한 고난들.

141:4.5 (1591.1) 1. Diseases of the flesh — those afflictions commonly regarded as physical sickness.

2. 고통 받는 마음—나중에 가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과 혼란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비육체적인 고통들.

141:4.6 (1591.2) 2. Troubled minds — those nonphysical afflictions which were subsequently looked upon as emotional and mental difficulties and disturbances.

3.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141:4.7 (1591.3) 3.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도 불린 이들 악한 영들의 본성과, 그리고 기원에 관련한 여러가지를 여러 기회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주(主)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는 것과 정신 이상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의 관하여 그들이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는, 예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이들 악한 영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 "그들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왕국이 위대한 힘과 영적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한 주일이 두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며, 이 온 한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 5 장. 영적 합일

아마투스에서 있었던 모든 회의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영적 합일(合一)에 관한 토의와 관계되었던 부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물기를, "주(主)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 안에서 좀 더 나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자신의 영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비슷하게 보라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하느님 이전까지 기원성과 자유에서의 개별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끝 날에 이르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회적인 조화나 우애적인 평화, 자유로운 개인성과 영적 기원성을 희생한 대가(代價)로 얻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도들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 합일이다.—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너희 연합된 봉헌의 기쁨 안에서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영적으로 한결같이 위해서, 너희가 한결같이 보거나 한결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한결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합일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선물을 너희가 의식함에서 온다. 너희의 사도간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적 소망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각자 안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영들의 존재를 상호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목적과 영적 납득의 완전한 합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개별존재의 지적 사고(思考), 변덕스러운 감정,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의 극도의 다양성에 바로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든 심오한 영적 합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적 본성과 신성한 경배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영

141:4.8 (1591.4) Jesus explained to his apostles on several occasions the nature, and something concerning the origin, of these evil spirits, in that day often also called unclean spirits. The Master well kn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and insanity, but the apostles did not. Neither was it possible, in view of their limited knowledge of the early history of Urantia, for Jesus to undertake to make this matter fully understandable. But he many times said to them, alluding to these evil spirits: "They shall no more molest men when I shall have ascended to my Father in heaven, and after I shall have poured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in those times when the kingdom will come in great power and spiritual glory."

141:4.9 (1591.5) From week to week and from month to month, throughout this entire year, the apostles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healing ministry of the sick.

5. SPIRITUAL UNITY

141:5.1 (1591.6) One of the most eventful of all the evening conferences at Amathus was the session having to do with the discussion of spiritual unity. James Zebedee had asked, "Master, how shall we learn to see alike and thereby enjoy more harmony among ourselves?"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was stirred within his spirit, so much so that he replied: "James, James, when did I teach you that you should all see alike?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proclaim spiritual liberty to the end that mortals may be empowered to live individual lives of originality and freedom before God. I do not desire that social harmony and fraternal peace shall be purchased by the sacrifice of free personality and spiritual originality. What I require of you, my apostles, is spirit unity — and that you can experience in the joy of your united dedication to the wholehearted doing of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You do not have to see alike or feel alike or even think alike in order spiritually to be alike. Spiritual unity is deriv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each of you is indwelt, and increasingly dominated, by the spirit gift of the heavenly Father. Your apostolic harmony must grow out of the fact that the spirit hope of each of you is identical in origin, nature, and destiny."

141:5.2 (1591.7) "In this way you may experience a perfected unity of spirit purpose and spirit understanding growing out of the mutual consciousness of the identity of each of your indwelling Paradise spirits; and you may enjoy all of this profound spiritual unity in the very face of the utmost diversity of your individual attitudes of intellectual thinking, temperamental feeling, and

적 열매가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혼의 합일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동안, 너희의 개인성들은 신전하게 다양화되고 눈에 띄게 다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원적으로 부여받은 마음, 몸, 혼의 자질을 가지고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합일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의 영적 합일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것들은 항상 개별 신도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너희는 생의 봉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실존(實在)에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래서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주에게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예수는 여러 차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되돌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선한 사람의 종교적 해석이더라도 이에 따라, 독단적이 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신자들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왕국 복음 안에 교리(敎理)의 제정이나 전통을 세우지 말도록 거듭 거듭 경고하였다.

제 6 장. 아마투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아마투스에서 보낸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 시몬 젤로페는 다마스쿠스에서 사업을 하는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를 예수께로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갔었으며, 그곳에서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테헤르마를 가르치도록 하였었다. 테헤르마가 붙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한 한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열심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페르시아 사람을 "불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를 한 후 그 페르시아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더 머물러 있을 뜻을 밝혔다.

시몬 젤로페는 예수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주(主)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저는 그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나에게서는 저항하고 선생님에게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 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해

social conduct. Your personalities may be refreshingly diverse and markedly different, while your spiritual natures and spirit fruits of divine worship and brotherly love may be so unified that all who behold your lives will of a surety take cognizance of this spirit identity and soul unity; they will recognize that you have been with me and have thereby learned, and acceptably, how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You can achieve the unity of the service of God even while you render such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que of your own original endowments of mind, body, and soul.

141:5.3 (1592.1) "Your spirit unity implies two things, which always will be found to harmonize in the lives of individual believers: First, you are possessed with a common motive for life service; you all desire above everything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Second, you all have a common goal of existence; you all purpose to find the Father in heaven, thereby proving to the universe that you have become like him."

141:5.4 (1592.2) Many times during the training of the twelve Jesus reverted to this theme. Repeatedly he told them it was not his desire that those who believed in him should become dogmatized and standard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ligious interpretations of even good men. Again and again he warned his apostles against the formulation of creeds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itions as a means of guiding and controlling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6. LAST WEEK AT AMATHUS

141:6.1 (1592.3) Near the end of the last week at Amathus, Simon Zelotes brought to Jesus one Teherma, a Persian doing business at Damascus. Teherma had heard of Jesus and had come to Capernaum to see him, and there learning that Jesus had gone with his apostles down the Jordan on the way to Jerusalem, he set out to find him. Andrew had presented Teherma to Simon for instruction. Simon looked upon the Persian as a "fire worshiper," although Teherma took great pains to explain that fire was only the visible symbol of the Pure and Holy One. After talking with Jesus, the Persian signified his intention of remaining for several days to hear the teaching and listen to the preaching.

141:6.2 (1592.4) When Simon Zelotes and Jesus were alone, Simon asked the Master: "Why is it that I could not persuade him? Why did he so resist me and so readily lend an ear to you?" Jesus answered: "Simon, Simon, how many times have I instructed you to refrain from all efforts to take something out of the hearts of those

야 하겠느냐? 이러한 굶주린 혼속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왕국의 진리들이 곧 모든 심각한 실수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제로서 하느님의 한 아들인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고 있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리고 새롭고 나은 일생의 길을 선포하였던가?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려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왕국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왕국 안에서 혼의 진보적인 향상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이다."

시몬은 이러한 말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예수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는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날 밤, 예수는 왕국에서의 새 일생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강연하였다. 그가 말썬한 일부분은 이렇다: "너희가 왕국에 들어갈 때는, 너희는 거듭난다. 오직 육신으로 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들을 가르칠 수 없다; 영의 향상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인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먼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자녀관계라는 교리를 너희가 강연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로써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항상 참을성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의 왕국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대사들일 뿐이다. 단지 나아가며 선포하라: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만약 그것을 온 가슴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아마투스에 체류하던 동안 사도들은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제안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까지도 예수가 말썬한 것은 오직 다음과 같았다: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靈)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 7 장.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큰 집단의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페레아 지역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울까지 여행하였

who seek salvation? How often have I told you to labor only to put something into these hungry souls? Lead men into the kingdom, and the great and living truths of the kingdom will presently drive out all serious error. When you have presented to mortal man the good news that God is his Father, you can the easier persuade him that he is in reality a son of God. And having done that, you have brought the light of salvation to the one who sits in darkness. Simon, when the Son of Man came first to you, did he come denouncing Moses and the prophets and proclaiming a new and better way of life? No. I came not to take away that which you had from your forefathers but to show you the perfected vision of that which your fathers saw only in part. Go then, Simon, teaching and preaching the kingdom, and when you have a man safely and securely within the kingdom, then is the time, when such a one shall come to you with inquiries, to impart instruction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ive advancement of the soul within the divine kingdom."

141:6.3 (1592.5) Simon was astonished at these words, but he did as Jesus had instructed him, and Teherma, the Persian, was numbered among those who entered the kingdom.

141:6.4 (1592.6) That night Jesus discoursed to the apostles on the new life in the kingdom. He said in part: "When you enter the kingdom, you are reborn. You cannot teach the deep things of the spirit to those who have been born only of the flesh; first see that men are born of the spirit before you seek to instruct them in the advanced ways of the spirit. Do not undertake to show men the beauties of the temple until you have first taken them into the temple. Introduce men to God and as the sons of God before you discourse on the doctrine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of men. Do not strive with men — always be patient. It is not your kingdom; you are only ambassadors. Simply go forth proclaiming: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 God is your Father and you are his sons, and this good news, if you wholeheartedly believe it, is your eternal salvation."

141:6.5 (1593.1) The apostles made great progress during the sojourn at Amathus. But they were very much disappointed that Jesus would give them no suggestions about dealing with John's disciples. Even in the important matter of baptism, all that Jesus said was: "John did indeed baptize with water, but when you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 shall be baptized with the Spirit."

7. AT BETHANY BEYOND JORDAN

141:7.1 (1593.2) On February 26, Jesus, his apostles, and a large group of followers journeyed down the Jordan to the ford near Bethany in Perea, the

는데, 그곳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하여 요한이 첫 선포를 한 장소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4주 동안을 이곳에서 가르침과 설교를 하며 남아 있었다.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을 건너 여리고의 남쪽에 있는 언덕으로 3일 간의 휴양을 떠났다. 주(主)는 이들 세 명에게 하늘의 왕국에 관한 새롭고 차원 높은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다. 이 기록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들 가르침들을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왕국의 훌륭한 영적 실체를 맛보게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에 살고, 그들의 생활을 봄으로써 왕국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왕국의 길들에 대한 신도들의 질문을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애썼다.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모든 진지한 탐구자들은, 영원하고 신성한 영적 실체들과 함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신앙 선물에 대한 기쁜 소식 듣기를 언제나 기뻐한다.

주(主)는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과업은 하느님을 개별적인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이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아들임을 의식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이 동일한 사람을 하느님에게 그의 신앙 아들이로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계시들 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全的)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수여 일생에서의 삶에 근원이 되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책도 법도, 혹은 개별존재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간 조직체에 대한 어떤 형태도 뒤에 남기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모든 다른 인간 관계성에서 언제까지나 우선을 삼아야 하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친밀한 영적 동료관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주었던 유일한 상은: 이 세상에서는—영적 기쁨과 신성한 교제; 다음 세상에서는—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로 향상하는 영원한 일생이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첫째로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하였던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진정으로 인식함을 통하여 인간 해방의 성취라는 혁명적인 가르침과 연관된 신앙, 오로지 신앙으로 인한 구원의 달성을 말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현시하신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되돌아 간 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가슴속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주(主)는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 전

place where John first made proclamation of the coming kingdom. Jesus with his apostles remained here, teaching and preaching, for four weeks before they went on up to Jerusalem.

141:7.2 (1593.3) The second week of the sojourn at Bethany beyond Jordan,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into the hills across the river and south of Jericho for a three days' rest. The Master taught these three many new and advanced truth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For the purpose of this record we will reorganize and classify these teachings as follows:

141:7.3 (1593.4) Jesus endeavored to make clear that he desired his disciples, having tasted of the good spirit realities of the kingdom, so to live in the world that men, by seeing their lives, would become kingdom conscious and hence be led to inquire of believers concerning the ways of the kingdom. All such sincere seekers for the truth are always glad to hear the glad tidings of the faith gift which insures admission to the kingdom with its eternal and divine spirit realities.

141:7.4 (1593.5) The Master sought to impress upon all teach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at their only business was to reveal God to the individual man as his Father — to lead this individual man to become son-conscious; then to present this same man to God as his faith son. Both of these essential revelations are accomplished in Jesus. He became, indeed,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religion of Jesus was wholly based on the living of his bestowal life on earth. When Jesus departed from this world, he left behind no books, laws, or other forms of human organization affecting the religious life of the individual.

141:7.5 (1593.6) Jesus made it plain that he had come to establish personal and eternal relations with men which should forever take precedence over all other human relationships. And he emphasized that this intimate spiritual fellowship was to be extended to all men of all ages and of all social conditions among all peoples. The only reward which he held out for his children was: in this world — spiritual joy and divine communion; in the next world — eternal life in the progress of the divine spirit realities of the Paradise Father.

141:7.6 (1593.7) Jesus laid great emphasis upon what he called the two truths of first import in the teachings of the kingdom, and they are: the attainment of salvation by faith, and faith alone, associated with the revolutionary teaching of the attainment of human liberty through the sincere recognition of truth,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esus was the truth made manifest in the flesh, and he promised to send his Spirit of Truth into the hearts of all his children after his return to the Father in heaven.

141:7.7 (1594.1) The Master was teaching these

체 세대를 위한 진리의 정수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자주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때는, 실제로 있어서는 그의 말은 다른 세상들의 영감(靈感)과 교화를 안중에 둔 것들이었다. 그는 일생의 새롭고도 기원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영역의 필사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사셨다.

왕국의 계획을 펼쳐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진화 종교들에서 무시되었던,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계층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가 어찌면 제 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 증여의 임무를 맡아 지상에 온 것은 소수의 지상 창조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의 일생의 표준을 설립하고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도들에게 부드럽게 밝히셨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에 심지어는 우주 아버지의 마지막 선함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물질적인 마음에 영적 진리를 제시해 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역할하려고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였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력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매우 효력적이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웅변이나 감정에 호소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성에 의한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사람의 영의 선생이었지만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다.

예수는 증여 이전에 받았던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의 지시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연관-동료"의 명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게 전심을 다한 단 한가지의 목적에 동기를 두었기에, 그는 세상에서의 악에 의해 근심스러운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의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쉽게 주(主)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모든 인간들로부터 독립하여 벗어나 사셨다. 어떤 순수하게 인간 영향에 의해 지배되었거나 혹은 약한 인간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 순간도 없었다. 그는 대중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칭찬에 의해 영향을 입지 않았다. 그는 오해를 풀려고 주저하거나 허

apostles the essentials of truth for an entire age on earth. They often listened to his teachings when in reality what he said was intended for the inspiration and edification of other worlds. He exemplified a new and original plan of life. From the human standpoint he was indeed a Jew, but he lived his life for all the world as a mortal of the realm.

141:7.8 (1594.2) To insure the recognition of his Father in the unfolding of the plan of the kingdom, Jesus explained that he had purposely ignored the "great men of earth." He began his work with the poor, the very class which had been so neglected by most of the evolutionary religions of preceding times. He despised no man; his plan was world-wide, even universal. He was so bold and emphatic in these announcements that even Peter, James, and John were tempted to think he might possibly be beside himself.

141:7.9 (1594.3) He sought mildly to impart to these apostles the truth that he had come on this bestowal mission, not to set an example for a few earth creatures, but to establish and demonstrate a standard of human life for all peoples upon all worlds throughout his entire universe. And this standard approached the highest perfection, even the final goodness of the Universal Father. But the apostles could not grasp the meaning of his words.

141:7.10 (1594.4) He announced that he had come to function as a teacher, a teacher sent from heaven to present spiritual truth to the material mind. And this is exactly what he did; he was a teacher, not a preacher. From the human viewpoint Peter was a much more effective preacher than Jesus. Jesus' preaching was so effective because of his unique personality, not so much because of compelling oratory or emotional appeal. Jesus spoke directly to men's souls. He was a teacher of man's spirit, but through the mind. He lived with men.

141:7.11 (1594.5) It was on this occasion that Jesus intimated to Peter, James, and John that his work on earth was in some respects to be limited by the commission of his "associate on high," referring to the prebestowal instruction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He told them that he had come to do his Father's will and only his Father's will. Being thus motivated by a wholehearted singleness of purpose, he was not anxiously bothered by the evil in the world.

141:7.12 (1594.6) The apostles were beginning to recognize the unaffected friendliness of Jesus. Though the Master was easy of approach, he always lived independent of, and above, all human beings. Not for one moment was he ever dominated by any purely mortal influence or subject to frail human judgment. He paid no attention to public opinion, and he was

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충고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얼마나 예수가 시발점에서 끝을 내다보시는 것 같았는지 그것에 감탄하였다. 주(主)는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는 절대로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안에서 살았고, 납득했고, 사랑했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셨다. 그의 개인적 일생에서 그는 그렇게 인간이었음에도 그렇게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사심-없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에 예수가 한 말들을 많이 납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아한 말들은 그들의 가슴속에서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한 후에 그것들은 훗날의 그들의 사명활동을 매우 풍부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사도들이 주(主)의 말을 충분하게 이해 못했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내보였기 때문이었다.

제 8 장. 여리고 에서의 일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의 4주간의 체류기간을 통하여 안드레는 매 주마다 두 명의 사도들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하였다. 여리고 에는 많은 요한의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좀 더 향상된 가르침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여리고의 방문에서 사도들은 병든 자를 보살피라는 예수의 좀 더 세부적인 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시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각기 고통 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대중을 위한 일을 좀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별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왕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매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들의 메시지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가 12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설교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명활동할 것을 명령한 것이 처음으로 충만하게 효과를 거둔 곳은 여리고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추었고, 예수와 상의를 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대표단(代表團)을 만났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는데 동쪽에서 도착한 이 진리의 구도자들이 도착하자 예수는 그들과 3일을 지체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uninfluenced by praise. He seldom paused to correct misunderstandings or to resent misrepresentation. He never asked any man for advice; he never made requests for prayers.

141:7.13 (1594.7) James was astonished at how Jesus seemed to see the end from the beginning. The Master rarely appeared to be surprised. He was never excited, vexed, or disconcerted. He never apologized to any man. He was at times saddened, but never discouraged.

141:7.14 (1594.8) More clearly John recognized that, notwithstanding all of his divine endowments, after all, he was human. Jesus lived as a man among men and understood, loved, and knew how to manage men. In his personal life he was so human, and yet so faultless. And he was always unselfish.

141:7.15 (1595.1) Although Peter, James, and John could not understand very much of what Jesus said on this occasion, his gracious words lingered in their hearts, and after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they came forth greatly to enrich and gladden their subsequent ministry. No wonder these apostles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Master's words, for he was projecting to them the plan of a new age.

8. WORKING IN JERICHO

141:8.1 (1595.2) Throughout the four weeks' sojourn at Bethany beyond Jordan, several times each week Andrew would assign apostolic couples to go up to Jericho for a day or two. John had many believers in Jericho, and the majority of them welcomed the more advanced teachings of Jesus and his apostles. On these Jericho visits the apostles began more specifically to carry out Jesus' instructions to minister to the sick; they visited every house in the city and sought to comfort every afflicted person.

141:8.2 (1595.3) The apostles did some public work in Jericho, but their efforts were chiefly of a more quiet and personal nature. They now made the discovery that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as very comforting to the sick; that their message carried healing for the afflicted. And it was in Jericho that Jesus' commission to the twelve to preach the glad tidings of the kingdom and minister to the afflicted was first fully carried into effect.

141:8.3 (1595.4) They stopped in Jericho on the way up to Jerusalem and were overtaken by a delegation from Mesopotamia that had come to confer with Jesus. The apostles had planned to spend but a day here, but when these truth seekers from the East arrived, Jesus spent three days with them, and they returned to their various

강을 따라 그들 각자의 집으로 행복에 차서 돌아갔다.

homes along the Euphrates happy in the knowledge of the new truths of the kingdom of heaven.

제 9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3월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언덕을 지나 여행을 시작하였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 왔었으며, 주(主)와 그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기간 동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집에 그들의 본부를 두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군중들을 가르치며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 건너의 베다니에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12사도들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여기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며 5일간 머물렀다. 주(主)와 사도들이 오빠의 집에 체류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던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며; 이것이 주(主)와 12사도가 함께 그 곳에 있었던 맨 처음이었다..

9. DEPARTING FOR JERUSALEM

141:9.1 (1595.5) On Monday, the last day of March, Jesus and the apostles began their journey up the hills toward Jerusalem. Lazarus of Bethany had been down to the Jordan twice to see Jesus, and every arrangement had been made for the Master and his apostles to make their headquarters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Bethany as long as they might desire to stay in Jerusalem.

141:9.2 (1595.6) The disciples of John remained at Bethany beyond the Jordan, teaching and baptizing the multitudes, so that Jesus was accompanied only by the twelve when he arrived at Lazarus's home. Here Jesus and the apostles tarried for five days, resting and refreshing themselves before going on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It was a great event in the lives of Martha and Mary to have the Master and his apostles in the home of their brother, where they could minister to their needs.

141:9.3 (1595.7) On Sunday morning, April 6, Jesus and the apostles went down to Jerusalem; and this was the first time the Master and all of the twelve had been there together.

제 142 편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 141

유랜시아 책

14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2 편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섹션

소개

제 1 장. 성전에서의 가르침

제 2 장. 하느님의 진노

제 3 장. 하느님 개념

제 4 장. 플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제 5 장. 확신에 대한 강연

제 6 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제 7 장. 가족에 관한 교훈

제 8 장. 남부 유대 지방에서

PAPER 142

THE PASSOVER AT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Teaching in the Temple

2. God's Wrath

3. The Concept of God

4. Flavius and Greek Culture

5. The Discourse on Assurance

6. The Visit with Nicodemus

7. The Lesson on the Family

8. In Southern Judea

소개

4월에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매일 밤마다 저녁시간을 베다니에서 지내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갔다. 예수 자신은 매주 하루나 이틀 밤은 그리스파 유대인인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지냈으며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은밀히 그 곳으로 찾아왔다.

예루살렘에서의 첫째 날에 예수는 한때 높은 사제이었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친족이며 자신의 옛날 친구인 안나스를 방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 높은 사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거리감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예수가 안나스의 냉정함을 눈치 채시고 곧 바로 그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자부심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다; 당신은 자신을 배반하여, 기쁨과 해방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나 안나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가 사람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위와 앉아 있기 전까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INTRODUCTION

^{142:0.1 (1596.1)} THE month of April Jesus and the apostles worked in Jerusalem, going out of the city each evening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Jesus himself spent one or two nights each week in Jerusalem at the home of Flavius, a Greek Jew, where many prominent Jews came in secret to interview him.

^{142:0.2 (1596.2)} The first day in Jerusalem Jesus called upon his friend of former years, Annas, the onetime high priest and relative of Salome, Zebedee's wife. Annas had been hearing about Jesus and his teachings, and when Jesus called at the high priest's home, he was received with much reserve. When Jesus perceived Annas's coldness, he took immediate leave, saying as he departed: "Fear is man's chief enslaver and pride his great weakness; will you betray yourself into bondage to both of these destroyers of joy and liberty?" But Annas made no reply. The Master did not again see Annas until the time when he sat with his son-in-law in judgment on the Son of Man.

제 1 장. 성전에서의 가르침

이 달 내내, 예수나 또는 사도 중의 하나가 매일 같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유월절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성전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장소의 입구를 찾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한 경내 밖에서 많은 가르침을 수행하였다.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2.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 왕국 안에서는 사랑,—한편으로는 너희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헌신이 삶의 규칙이다.

4.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각자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왕국의 율법이다.

유월절 축제에 왔던 군중들은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좋은 소식으로 기쁨을 향유하였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토론하였다.

성전 안에서와 주위에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사도들과 다른 신도들은 유월절 군중들 속에서 많은 개인적 일을 하였다. 관심을 가진 이 남자와 여자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관한 소식을 이 유월절 축제로부터 로마제국의 가장 먼 지방들과 또한 동방에까지 전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 외부 세상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예수의 사명활동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 2 장. 하느님의 진노

크레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한 유대인 부자(富者) 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와의 사적인 회견을 안드레에게 요청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와의 이 은밀한 회합을 다음 날 저녁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갖도록 주선하였다. 이 사람은 주(主)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좀 더 충분하게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다. 야곱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시여, 모세와 옛날 선지자들은, 야훼는 큰 진노를 가지고 계시며 크게 화내시는 하느님이신 질투의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이 새로운 하늘의 왕국 안으로 그들을 모두 환영하는, 친절하고 연

1. TEACHING IN THE TEMPLE

142:1.1 (1596.3) Throughout this month Jesus or one of the apostles taught daily in the temple. When the Passover crowds were too great to find entrance to the temple teaching, the apostles conducted many teaching groups outside the sacred precincts. The burden of their message was:

142:1.2 (1596.4) 1.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142:1.3 (1596.5) 2. By faith in the fatherhood of God you may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us becoming the sons of God.

142:1.4 (1596.6) 3. Love is the rule of living within the kingdom — supreme devotion to God while loving your neighbor as yourself.

142:1.5 (1596.7) 4. Obedience to the will of the Father, yielding the fruits of the spirit in one's personal life, is the law of the kingdom.

142:1.6 (1596.8) The multitudes who came to celebrate the Passover heard this teaching of Jesus, and hundreds of them rejoiced in the good news.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of the Jews became much concerned about Jesus and his apostles and debated among themselves as to what should be done with them.

142:1.7 (1596.9) Besides teaching in and about the temple, the apostles and other believers were engaged in doing much personal work among the Passover throngs. These interested men and women carried the news of Jesus' message from this Passover celebration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Roman Empire and also to the East.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pread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outside world. No longer was the work of Jesus to be confined to Palestine.

2. GOD'S WRATH

142:2.1 (1597.1) There was in Jerusalem in attendance upon the Passover festivities one Jacob, a wealthy Jewish trader from Crete, and he came to Andrew making request to see Jesus privately. Andrew arranged this secret meeting with Jesus at Flavius's home the evening of the next day. This man could not comprehend the Master's teachings, and he came because he desired to inquire more fully about the kingdom of God. Said Jacob to Jesus: “But, Rabbi, Moses and the olden prophets tell us that Yahweh is a jealous God, a God of great wrath and fierce anger. The prophets say he hates evildoers and takes vengeance on those who obey not his law. You and your disciples teach us that God is a kind and compassionate Father who so loves all men that he would welcome them into this new

민이 가득한 아버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을 끝내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야곱아, 너는 옛날 선지자가 그들 시대의 빛에 따라서 그들 세대의 자녀들을 가르쳤음을 잘 표현하였다.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모세의 시절들로부터 아모스의 시절을 거쳐 선지자 이사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영광으로 아버지를 현시(顯示)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육신으로 왔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선한 뜻의 메시지로써 널리 퍼질 때, 모든 민족들의 종족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개선되고 나은 관계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버지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각자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에, 그와 같이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잘 납득하게 될 것이다. 야곱아, 선하고 진실된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전체로—하나의 가족으로—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 구성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는 후에 예수는 숨을 돌리시며 말씀하였다: “야곱아, 많은 자녀를 가진 아버지인, 너는 내말의 진실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그런데 주(主)여, 제가 여섯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저의 신상에 대해 아십니까?” 그러자 주(主)가 대답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네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너는 이제 너—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너, 곧 너의 개별 혼—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체로서 받아들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너의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철이 나지 않았을 때나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거나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들은 그 처벌을 관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올바르게 해주려는 애정을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남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예전의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어른 남녀로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모든 어렸을 적의 단련에서의 그들 아버지의 사랑을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세기(世紀)가 지나면서 이제는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본성과 사랑이 많으신 성격을 좀 더 잘 납득할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느님 보기를 고집 한다면, 영적으로 계몽된 이어진 세대에서 네가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야곱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는 이 순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적

kingdom of heaven, which you proclaim is so near at hand.”

142:2.2 (1597.2) When Jacob finished speaking, Jesus replied: “Jacob, you have well stated the teachings of the olden prophets who taught the children of their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ght of their day. Our Father in Paradise is changeless. But the concept of his nature has enlarged and grown from the days of Moses down through the times of Amos and even to the generation of the prophet Isaiah. And now have I come in the flesh to reveal the Father in new glory and to show forth his love and mercy to all men on all worlds. As the gospel of this kingdom shall spread over the world with its message of good cheer and good will to all men, there will grow up improved and better relations among the families of all nations. As time passes, fathers and their children will love each other more, and thus will be brought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ove of the Father in heaven for his children on earth. Remember, Jacob, that a good and true father not only loves his family as a whole — as a family — but he also truly loves and affectionately cares for each individual member.”

142:2.3 (1597.3) After considerable discussion of the heavenly Father's character, Jesus paused to say: “You, Jacob, being a father of many, know well the truth of my words.” And Jacob said: “But, Master, who told you I was the father of six children? How did you know this about me?” And the Master replied: “Suffice it to say that the Father and the Son know all things, for indeed they see all. Loving your children as a father on earth, you must now accept as a reality the love of the heavenly Father for you — not just for all the children of Abraham, but for you, your individual soul.”

142:2.4 (1597.4) Then Jesus went on to say: “When your children are very young and immature, and when you must chastise them, they may reflect that their father is angry and filled with resentful wrath. Their immaturity cannot penetrate beyond the punishment to discern the father's farseeing and corrective affection. But when these same children become grown-up men and women, would it not be folly for them to cling to these earlier and misconceived notions regarding their father? As men and women they should now discern their father's love in all these early disciplines. And should not mankind, as the centuries pass, come the better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and loving character of the Father in heaven? What profit have you from successive generations of spiritual illumination if you persist in viewing God as Moses and the prophets saw him? I say to you, Jacob, under the bright light of this hour you should see the Father as none of those who have gone before ever beheld him. And thus

이 없는 아버지를 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그를 봄으로써 너는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을 향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 넘치는 의지가 이제부터의 네 일생을 지배하도록 추구하여야만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랍비여,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3 장. 하느님 개념

12사도들은, 그들 중 대부분 하느님의 성격에 대한 이 토론을 들었는데, 그 날 밤 예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主)의 대답을 현대 문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다음의 말을 하면서 12사도들을 가볍게 꾸짖었다: 너희는 야훼 관념의 성장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느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주(主)는 사도들에게 유대백성들의 발달 과정을 통한 신(神) 개념의 진화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는 하느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위상들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1. 야훼—시나이 씨족들의 하느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이라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원시적인 신(神)의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의 신(神)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가 혹은 신성한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는가에 결코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실한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2. 지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이 개념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神)의 관념은 나중에 믿었던 자들에 의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해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신 경배의 체제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그들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 에리온—지고자 하느님—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들의 개념은 하느님의 개념을 합성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관념들과 지고자의 교리가 함께 섞여진 것이었다.

3. 엘 샤다이. 이러한 초기 시절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나일 강 지역에 포로로 있는 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이집트 사람들의 하느님 개념인 엘 샤다이를 경배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 세 가지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들 모두가 합쳐져서 창조자 신(神), 이스라엘의 주(主) 하느님에 관한 교리를 형성하였다.

4. 엘로힘. 아담의 시대부터 파라다이스 삼위 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되어 왔다. 너희는 성

seeing him, you should rejoice to enter the kingdom wherein such a merciful Father rules, and you should seek to have his will of love dominate your life henceforth.”

142:2.5 (1598.1) And Jacob answered: “Rabbi, I believe; I desire that you lead me into the Father’s kingdom.”

3. THE CONCEPT OF GOD

142:3.1 (1598.2) The twelve apostles, most of whom had listened to this discussion of the character of God, that night asked Jesus many questions about the Father in heaven. The Master’s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st be presented by the following summary in modern phraseology:

142:3.2 (1598.3) Jesus mildly upbraided the twelve, in substance saying: Do you not know the traditions of Israel relating to the growth of the idea of Yahweh, and are you ignorant of the teaching of the Scriptures concerning the doctrine of God? And then did the Master proceed to instruct the apostles about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Deit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people. He called attention to the following phases of the growth of the God idea:

142:3.3 (1598.4) 1. *Yahweh* — the god of the Sinai clans. This was the primitive concept of Deity which Moses exalted to the higher level of the Lord God of Israel. The Father in heaven never fails to accept the sincere worship of his children on earth, no matter how crude their concept of Deity or by what name they symbolize his divine nature.

142:3.4 (1598.5) 2. *The Most High*. This concept of the Father in heaven was proclaimed by Melchizedek to Abraham and was carried far from Salem by those who subsequently believed in this enlarged and expanded idea of Deity. Abraham and his brother left Ur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sun worship, and they became believers in Melchizedek’s teaching of El Elyon — the Most High God. Theirs was a composite concept of God, consisting in a blending of their older Mesopotamian ideas and the Most High doctrine.

142:3.5 (1598.6) 3. *El Shaddai*. During these early days many of the Hebrews worshiped El Shaddai, the Egyptian concept of the God of heaven, which they learned about during their captivity in the land of the Nile. Long after the times of Melchizedek all three of these concepts of God became joined together to form the doctrine of the creator Deity, the Lord God of Israel.

142:3.6 (1598.7) 4. *Elohim*. From the times of Adam the teaching of the Paradise Trinity has persisted.

서의 시작에서 “태초에 하느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세 하느님들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최극자(最極者) 야훼. 이사야의 시대 무렵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들이 우주적 창조자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는 동시에 모든-힘을 지니고 모든-자비로움을 지닌 분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념들을 실질적으로 대체하였다.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이들 파라다이스 신(神)들의 본성과 사명활동에 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상승하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발달의 끝없는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시대들 동안에, 어떤 인간의 진정한 경배—개별존재적인 영적 발달에 관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충성으로서, 내주(內住)하는 영에 의하여 인지된다.

이전 세대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느님 개념의 성장을 예수가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질문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 앞에 앉아 있자, 주(主)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었다면, 이러한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주(主)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라는 구절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훼가 선과 악 모두를 창조했다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의 기자(記者)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 개념의 확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들 사건들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감히 악을 야훼의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너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느님 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하였는지를 명료하게 식별할 수 없었느냐?

“너희는 다시 한 번 이들 확대되어진 신성(神性)의 개념과 완전하게 말을 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납득과 성장한 것을 식별하여야만 할 것이다. 야훼에 대한 확대되어진 계시가 있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십계명(十誡命)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시나이산 앞에서 야영하고 있었던 때까지 그들의 법으로 쓰였다. 이 십계명이란:

Do you not recall how the Scriptures begin by asserting that “In the beginning the Gods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is indicates that when that record was made the Trinity concept of three Gods in one had found lodgment in the religion of our forebears.

142:3.7 (1598.8) 5. *The Supreme Yahweh.* By the times of Isaiah these beliefs about God had expanded into the concept of a Universal Creator who was simultaneously all-powerful and all-merciful. And this evolving and enlarging concept of God virtually supplanted all previous ideas of Deity in our fathers' religion.

142:3.8 (1598.9) 6. *The Father in heaven.* And now do we know God as our Father in heaven. Our teaching provides a religion wherein the believer is a son of God. That i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Coexistent with the Father are the Son and the Spirit, and the revelation of the nature and ministry of these Paradise Deities will continue to enlarge and brighten throughout the endless ages of the eternal spiritual progression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At all times and during all ages the true worship of any human being — as concerns individual spiritual progress — is recognized by the indwelling spirit as homage rendered to the Father in heaven.

142:3.9 (1599.1) Never before had the apostles been so shocked as they were upon hearing this recounting of the growth of the concept of God in the Jewish minds of previous generations; they were too bewildered to ask questions. As they sat before Jesus in silence, the Master continued: “And you would have known these truths had you read the Scriptures. Have you not read in Samuel where it says: ‘And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so much so that he moved David against them, saying, go number Israel and Judah’? And this was not strange because in the days of Samuel the children of Abraham really believed that Yahweh created both good and evil. But when a later writer narrated these events, subsequent to the enlargement of the Jewish concept of the nature of God, he did not dare attribute evil to Yahweh; therefore he said: ‘And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and provoked David to number Israel.’ Cannot you discern that such records in the Scriptures clearly show how the concept of the nature of God continued to grow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142:3.10 (1599.2) “Again should you have discerned the growth of the understanding of divine law in perfect keeping with these enlarging concepts of divinity.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ame out of Egypt in the days before the enlarged revelation of Yahweh, they had ten commandments which served as their law right up to the times when they were encamped before Sinai. And these ten

“1. 너는 다른 하느님에게 절하지 마라. 주는 질투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2. 너는 녹여 부은 하느님들을 만들지 마라.

“3. 너는 효소 없는 빵의 축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4. 사람이거나 가축이거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였다.

“5. 엿새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 칠일에는 쉬어라.

“6. 첫 열매의 축제와 거두는 축제 지키는 것을 어기지 말라.

“7. 어떤 희생물의 피도, 효소 넣은 빵과 함께 드리지 마라.

“8.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9. 너의 땅에서의 첫 열매의 처음을 가져다 너의 하느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10.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그러고 나서 시나이 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들로 신(神)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성서에 이러한 계명들이 두 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말이나?, 첫 번째 경우에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이유로 주어진 반면, 나중에 기록된, 우리 선조들이 요구했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에서 창조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해보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시 한 번—이사야 시대의 좀 더 큰 영적 깨우침 속에서—이들 열 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의무를 이루는 것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최극의 사랑의 율법이다.”

그가 말을 끝마치셨을 때, 아무도 질문하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가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commandments were:

142:3.11 (1599.3) “1.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is a jealous God.

142:3.12 (1599.4) “2. You shall not make molten gods.

142:3.13 (1599.5) “3. You shall not neglect to keep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142:3.14 (1599.6) “4. Of all the males of men or cattle, the first-born are mine, says the Lord.

142:3.15 (1599.7) “5. Six days you may work,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rest.

142:3.16 (1599.8) “6. You shall not fail to observe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and the feast of the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142:3.17 (1599.9) “7. You shall not offer the blood of any sacrifice with leavened bread.

142:3.18 (1599.10) “8. The sacrifice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shall not be left until morning.

142:3.19 (1599.11) “9. The first of the first fruits of the ground you shall bring 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142:3.20 (1599.12) “10. You shall not seethe a kid in its mother's milk.

142:3.21 (1599.13) “And then, amidst the thunders and lightnings of Sinai, Moses gave them the new ten commandments, which you will all allow are more worthy utterances to accompany the enlarging Yahweh concepts of Deity. And did you never take notice of these commandments as twice recorded in the Scriptures, that in the first case deliverance from Egypt is assigned as the reason for Sabbath keeping, while in a later record the advancing religious beliefs of our forefathers demanded that this be changed to the recognition of the fact of creation as the reason for Sabbath observance?

142:3.22 (1599.14) “And then will you remember that once again — in the greater spiritual enlightenment of Isaiah's day — these ten negative commandments were changed into the great and positive law of love, the injunction to love God supremely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it is this supreme law of love for God and for man that I also declare to you as constituting the whole duty of man.”

142:3.23 (1600.1)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no man asked him a question. They went, each one to his sleep.

제 4 장. 플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그리스파 유대인 플라비우스는 할레나 세례를 모두 받지 않았던, 할레를 행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였으며, 그림과 조각의 미에 심취해 있었기

4. FLAVIUS AND GREEK CULTURE

142:4.1 (1600.2) Flavius, the Greek Jew, was a proselyte of the gate, having been neither circumcised nor baptized; and since he was a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기거하는 집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이 집은 그가 세계 여행 중에 사방에서 수집한 매우 귀중한 보물들로 절묘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소위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들로 인하여 주(主)를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현시하였고, 플라비우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조각들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플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主)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셨으며; 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의 예술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해서 왜 네가 비난받아야 하겠느냐? 모세가 한 때 우상과 거짓 하느님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우아함과 미의 재창조에 얼굴을 찡그러야 하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말하겠는데, 모세의 자손들은 그를 잘못 납득해 왔으며, 그가 하늘과 땅의 사물들의 모습이나 형상으로 할 것을 금지한 거짓된 하느님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사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마음들에게 그렇게 금지조항들을 가르쳤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체 우주의 영 통치자라고 계시(啓示)되어진 오늘날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이것을 섬기지 말라, 저것을 섬기지 말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에서 멀리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한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 의무는 두 가지의 큰 특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자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자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하는 봉사이다. 만일 네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

“나의 아버지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되었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일생 안에서 계시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언제까지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창조자 아버지를 혼동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적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움에서의 물질적인 깊은 이해와, 만물과 모든 존재들의 하느님, 곧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봉사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예술 작품들을 즐길 수 가 있을 것이다.”

플라비우스는 예수가 자기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다. 다음 날 그는 요단을 지나 베다니로

great lover of the beautiful in art and sculpture, the house which he occupied when sojourning in Jerusalem was a beautiful edifice. This home was exquisitely adorned with priceless treasures which he had gathered up here and there on his world travels. When he first thought of inviting Jesus to his home, he feared that the Master might take offense at the sight of these so-called images. But Flavius was agreeably surprised when Jesus entered the home that, instead of rebuking him for having these supposedly idolatrous objects scattered about the house, he manifested great interest in the entire collection and asked many appreciative questions about each object as Flavius escorted him from room to room, showing him all of his favorite statues.

142:4.2 (1600.3) The Master saw that his host was bewildered at his friendly attitude toward art; therefore, when they had finished the survey of the entire collection, Jesus said: “Because you appreciate the beauty of things created by my Father and fashioned by the artistic hands of man, why should you expect to be rebuked? Because Moses onetime sought to combat idolatry and the worship of false gods, why should all men frown upon the reproduction of grace and beauty? I say to you, Flavius, Moses’ children have misunderstood him, and now do they make false gods of even his prohibitions of images and the likeness of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But even if Moses taught such restrictions to the darkened minds of those days, what has that to do with this day when the Father in heaven is revealed as the universal Spirit Ruler over all? And, Flavius, I declare that in the coming kingdom they shall no longer teach, ‘Do not worship this and do not worship that’; no longer shall they concern themselves with commands to refrain from this and take care not to do that, but rather shall all be concerned with one supreme duty. And this duty of man is expressed in two great privileges: sincere worship of the infinite Creator, the Paradise Father, and loving service bestowed upon one’s fellow men. If you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you really know that you are a son of God.

142:4.3 (1600.4) “In an age when my Father was not well understood, Moses was justified in his attempts to withstand idolatry, but in the coming age the Father will have been revealed in the life of the Son; and this new revelation of God will make it forever unnecessary to confuse the Creator Father with idols of stone or images of gold and silver. Henceforth, intelligent men may enjoy the treasures of art without confusing such material appreciation of beauty with the worship and service of the Father in Paradise, the God of all things and all beings.”

142:4.4 (1600.5) Flavius believed all that Jesus taught him. The next day he went to Bethany beyond the

가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직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플라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를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는데 60명의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이 손님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역시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Jordan and was baptized by the disciples of John. And this he did because the apostles of Jesus did not yet baptize believers. When Flavius returned to Jerusalem, he made a great feast for Jesus and invited sixty of his friends. And many of these guests also became believers in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제 5 장. 확신에 대한 강연

이 유월절 주간에 예수가 성전에서 설교한 가장 위대한 설교들 중의 하나는 다마스쿠스 사람인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랍비시여, 당신을 하느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왕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의 메시지와 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너희는 그것들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에 관한 진리들을 전파한다면, 우리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영이 너의 가슴 안에서 증거 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 의한 승낙에 대한 너희의 확신과 왕국에 대해서 묻겠는데, 너희들 중의 홀륭하고 인정이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족 안에서의 자기 지위와 아버지의 가슴속에 있는 애정의 확실성에 대하여 근심과 불안에 있게 하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인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네 인간 가슴속 안에 있는 불변의 애정에서의 그들 위치의 불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왕국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관한 의심스런 불확실성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놓아두지 않으신다. 만약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영원하고 신성한 아들관계에 관한 모든 위치와 신분에서 너희는 보장받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되며,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늘의 시민 됨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는 신성한 왕국에서 진보의 영원한 일생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최극자 영은 너희가 진실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영들에게 증거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다; 영으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불확실성과 너의 신앙까지라도 극복하는 승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시대들에 대해서 말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정의(正義)의 결과는 언제까지나 화평이요 평안이요 확신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

5. THE DISCOURSE ON ASSURANCE

142:5.1 (1601.1) One of the great sermons which Jesus preached in the temple this Passover week was in answer to a question asked by one of his hearers, a man from Damascus. This man asked Jesus: “But, Rabbi, how shall we know of a certainty that you are sent by God, and that we may truly enter into this kingdom which you and your disciples declare is near at hand?” And Jesus answered:

142:5.2 (1601.2) “As to my message and the teaching of my disciples, you should judge them by their fruits. If we proclaim to you the truths of the spirit, the spirit will witness in your hearts that our message is genuine. Concerning the kingdom and your assurance of acceptance by the heavenly Father, let me ask what father among you who is a worthy and kindhearted father would keep his son in anxiety or suspense regarding his status in the family or his place of security in the affections of his father’s heart? Do you earth fathers take pleasure in torturing your children with uncertainty about their place of abiding love in your human hearts? Neither does your Father in heaven leave his faith children of the spirit in doubtful uncertainty as to their position in the kingdom. If you receive God as your Father, then indeed and in truth are you the sons of God. And if you are sons, then are you secure in the position and standing of all that concerns eternal and divine sonship. If you believe my words, you thereby believe in Him who sent me, and by thus believing in the Father, you have made your status in heavenly citizenship sure. If you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you shall never fail in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life of progress in the divine kingdom.

142:5.3 (1601.3) “The Supreme Spirit shall bear witness with your spirits that you are truly the children of God. And if you are the sons of God, then have you been born of the spirit of God; and whosoever has been born of the spirit has in himself the power to overcome all doubt,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all uncertainty, even your faith.

142:5.4 (1601.4) “Said the Prophet Isaiah, speaking of these times: ‘When the spirit is poured upon us from on high, then shall the work of righteousness become peace, quietness, and assurance forever.’

는 모든 이에게는, 그들이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자비와 영속하는 일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왕국의 이 복음을 믿는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일생을 영속토록 가질 것이다; 너희가 영으로 난 자들이라는, 모든 세상에 대한 증거는,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경청하던 무리들은 여러 시간을 예수와 남아서 질문을 했고 위안을 주는 그의 대답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대답해져서 왕국의 복음을 좀 더 힘차고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체험으로 이 12사도들은 큰 영감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수많은 군중들과의 처음 접촉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고 나중의 사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제 6 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어느 날 저녁에 플라비우스의 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부자였으며 유대 산헤드린의 나이가 지긋한 회원이었다. 그는 이미 이 갈릴리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느 날 오후에 예수가 성전 정원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말을 들으러 갔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이미 예수께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 중 누구도 공공연히 예수와 정체성이 확인되기를 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 날 밤에 사적(私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드레와 함께 이미 약속해 두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플라비우스의 정원에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강연이 진행되고 있던 집안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니고데모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그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양보나 지나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의 은밀한 방문객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또한 아무런 빈정거림도 하지 않았다. 이 저명한 방문객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는 조용하였고 진지하였으며 품위가 있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 주(主)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진지한 관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러 왔다.

플라비우스에 의해 소개를 받은 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압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니고데모

And for all who truly believe this gospel, I will become surety for their reception into the eternal mercies and the everlasting life of my Father's kingdom. You, then, who hear this message and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re the sons of God, and you have life everlasting; and the evidence to all the world that you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is that you sincerely love one another.”

142:5.5 (1601.5) The throng of listeners remained many hours with Jesus, asking him questions and listening attentively to his comforting answers. Even the apostles were emboldened by Jesus' teaching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with more power and assurance. This experience at Jerusalem was a great inspiration to the twelve. It was their first contact with such enormous crowds, and they learned many valuable lessons which proved of great assistance in their later work.

6. THE VISIT WITH NICODEMUS

142:6.1 (1601.6) One evening at the home of Flavius there came to see Jesus one Nicodemus, a wealthy and elderly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He had heard much about the teachings of this Galilean, and so he went one afternoon to hear him as he taught in the temple courts. He would have gone often to hear Jesus teach, but he feared to be seen by the people in attendance upon his teaching, for already were the rulers of the Jews so at variance with Jesus that no member of the Sanhedrin would want to be identified in any open manner with him. Accordingly, Nicodemus had arranged with Andrew to see Jesus privately and after nightfall on this particular evening. Peter, James, and John were in Flavius's garden when the interview began, but later they all went into the house where the discourse continued.

142:6.2 (1602.1) In receiving Nicodemus, Jesus showed no particular deference; in talking with him, there was no compromise or undue persuasiveness. The Master made no attempt to repulse his secretive caller, nor did he employ sarcasm. In all his dealings with the distinguished visitor, Jesus was calm, earnest, and dignified. Nicodemus was not an official delegate of the Sanhedrin; he came to see Jesus wholly because of his personal and sincere interest in the Master's teachings.

142:6.3 (1602.2) Upon being presented by Flavius, Nicodemus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sent by God, for no mere man could so teach unless God were with him. And I am desirous of knowing more about your teachings regarding the coming kingdom.”

142:6.4 (1602.3) Jesus answered Nicodemus: “Verily,

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외에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위에서 태어나야 하겠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를 네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 —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육신의 눈으로 영의 현시활동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영을 식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말이나? 그래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적 세상의 현시활동작용만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시(啓示)해 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진리들을 말하고 있다면 네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왕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다시 만들어주는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만일 네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서 영의 인도를 전심을 다 바쳐 선택함으로써,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에 네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네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하느님의 왕국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너는 매일의 생활에서 풍부한 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매우 진지하였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어리둥절한 채로 떠났다. 니고데모는 자아-발전, 자아-절제, 그리고 높은 경지의 도덕적 본질특성까지도 성취하였다. 그는 세련되고, 자기본위적이고, 이타적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어린아이가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안내와 인도에 기꺼이 복종하듯이, 신성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어,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곧 영원한 왕국의 진보하는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왕국을 간직하고 있기에 충분한, 신앙의 용기를 냈다. 그는 산헤드린의 자기 동료들이 심문 없이 예수께 죄를 씌우려 할 때, 약하게나마 반대하였다; 그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용감하게 자기 신앙을 인정하였고,

verily, I say to you, Nicodemus, except a man be born from above,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Then replied Nicodemus: “But how can a man be born again when he is old?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142:6.5 (1602.4) Jesus said: “Nevertheless, I declare to you, except a man be born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But you should not marvel that I said you must be born from above. When the wind blows, you hear the rustle of the leaves, but you do not see the wind — whence it comes or whither it goes — and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With the eyes of the flesh you can behold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but you cannot actually discern the spirit.”

142:6.6 (1602.5) Nicodemus replied: “But I do not understand — how can that be?” Said Jesus: “Can it be that you are a teacher in Israel and yet ignorant of all this? It becomes, then, the duty of those who know about the realities of the spirit to reveal these things to those who discern only the manifestations of the material world. But will you believe us if we tell you of the heavenly truths? Do you have the courage, Nicodemus, to believe in one who has descended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142:6.7 (1602.6) And Nicodemus said: “But how can I begin to lay hold upon this spirit which is to remake me in preparation for entering into the kingdom?” Jesus answered: “Already does the spirit of the Father in heaven indwell you. If you would be led by this spirit from above, very soon would you begin to see with the eyes of the spirit, and then by the wholehearted choice of spirit guidance would you be born of the spirit since your only purpose in living would be to do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And so finding yourself born of the spirit and happily in the kingdom of God, you would begin to bear in your daily life the abundant fruits of the spirit.”

142:6.8 (1602.7) Nicodemus was thoroughly sincere. He was deeply impressed but went away bewildered. Nicodemus was accomplished in self-development, in self-restraint, and even in high moral qualities. He was refined, egoistic, and altruistic; but he did not know how to *submit* his will to the will of the divine Father as a little child is willing to submit to the guidance and leading of a wise and loving earthly father, thereby becoming in reality a son of God, a progressive heir of the eternal kingdom.

142:6.9 (1603.1) But Nicodemus did summon faith enough to lay hold of the kingdom. He faintly protested when his colleagues of the Sanhedrin sought to condemn Jesus without a hearing; and with Joseph of Arimathea, he later boldly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주(主)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 도망하였을 때에도 예수의 시신을 되찾았다.

acknowledged his faith and claimed the body of Jesus, even when most of the disciples had fled in fear from the scenes of their Master's final suffering and death.

제 7 장. 가족에 관한 교훈

7. THE LESSON ON THE FAMILY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간의 가르침과 개인적 사명활동으로 바쁘게 지낸 이후에 예수는 다음 수요일을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쉬면서 보내셨다. 그 날 오후에 도마가 길고도 교훈적인 대답을 얻어낸 질문을 하였다. 도마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왕국의 대사들로 출발하던 날에 우리의 사적인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군중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후에 왕국이 더욱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노예를 소유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구하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까? 자비 하나로서 설복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법과 공의를 안 가져도 됩니까?” 예수와 12사도들은 그 날 오후와 저녁 식사 후의 모든 밤 시간을 도마의 질문을 토의하면서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하여 우리는 주(主)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 한다:

예수는 자기 자신은 육신을 입고 독특한 일생을 지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과 12사도들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러한 중여 체험에 참가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동료로서 그들도 역시 중여 체험 전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하였다. 하느님의 진정한 가슴을 살펴보고 사람의 혼의 깊은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던지시 암시하였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은 진화적인 체험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파라다이스까지, 연속적인 일생을 통하여 진보해 나아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 밤중에 그는, 왕국 발전에서의 어느 미래 단계에서, 자신이 영적 힘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왕국 관념”이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최선의 길은 아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이 다가오는 왕국이라는 용어로서 설교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왕국의 복음이 가족 관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용어로 제시될 때—사람들이 종교를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 곧 하느님의 아들 관계로 이해할 때—, 왕국의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主)는 상당히 길게 하늘에서의 가족을 묘사하기 위하여 땅에서의 가족에

142:7.1 (1603.2) After the busy period of teaching and personal work of Passover week in Jerusalem, Jesus spent the next Wednesday at Bethany with his apostles, resting. That afternoon, Thomas asked a question which elicited a long and instructive answer. Said Thomas: “Master, on the day we were set apart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you told us many things, instructed us regarding our personal mode of life, but what shall we teach the multitude? How are these people to live after the kingdom more fully comes? Shall your disciples own slaves? Shall your believers court poverty and shun property? Shall mercy alone prevail so that we shall have no more law and justice?” Jesus and the twelve spent all afternoon and all that evening, after supper, discussing Thomas's ques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rd we present the following summary of the Master's instruction:

142:7.2 (1603.3) Jesus sought first to make plain to his apostles that he himself was on earth living a unique life in the flesh, and that they, the twelve, had been called to participate in this bestowal experience of the Son of Man; and as such coworkers, they, too, must share in many of the special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of the entire bestowal experience. There was a veiled intimation that the Son of Man was the only person who had ever lived on earth who could simultaneously see into the very heart of God and into the very depths of man's soul.

142:7.3 (1603.4) Very plainly Jesus explained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an evolutionary experience, beginning here on earth and progressing up through successive life stations to Paradise. In the course of the evening he definitely stated that at some future stage of kingdom development he would revisit this world in spiritual power and divine glory.

142:7.4 (1603.5) He next explained that the “kingdom idea” was not the best way to illustrate man's relation to God; that he employed such figures of speech because the Jewish people were expecting the kingdom, and because John had preached in terms of the coming kingdom. Jesus said: “The people of another age will better underst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it is presented in terms expressive of the family relationship — when man understands religion as the teaching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sonship with God.” Then the

관해 강연을 하였으며 두 가지의 근본적 삶의 법칙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였다: 아버지, 곧 가족의 우두머리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었고, 자녀간의 서로의 사랑, 너의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와 같은 애정의 그러한 본질특성은, 사심-없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봉사 안에서 스스로 그 자체를 어김없이 현시(顯示)하게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가족생활의 근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대한 잊지 못할 토론이 뒤 따랐다. 예수는 참된 가족은 다음의 7 가지 사실에 바탕을 둔다고 말하였다:

1. 실존의 사실. 본성에서의 관계와 필사자 유사성 현상들은 가족 안에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낼 수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특색을 이어받는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근원을 가진다; 개인성 실존은 부모의 활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본성에서 선천적인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실존에 퍼져있다.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을 또한 즐긴다.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들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위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다. 자녀들이 나중의 일생에서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4.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들은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단련, 안내, 교정 그리고 때로는 억제를 규율로 정한다.

5. 동행자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 친근하고 사랑이 있는 교제를 유지한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 사항에 항상 열려있다; 그는 언제나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최극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6. 사랑과 자비.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기억들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판관, 적대자 또는 채권자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다. 실제 가족은 관용, 인내, 용서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재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의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죽음은 개별존재의 일생을 그치게 하지만, 가족을 부득이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Master discoursed at some length on the earthly family as an illustration of the heavenly family, restating the two fundamental laws of living: the first commandment of love for the father,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second commandment of mutual love among the children, to love your brother as yourself. And then he explained that such a quality of brotherly affection would invariably manifest itself in unselfish and loving social service.

142:7.5 (1603.6) Following that, came the memorable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family life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God and man. Jesus stated that a true family is founded on the following seven facts:

142:7.6 (1604.1) 1. *The fact of existence.* The relationships of nature and the phenomena of mortal likenesses are bound up in the family: Children inherit certain parental traits. The children take origin in the parents; personality existence depends on the act of the parent. The relationship of father and child is inherent in all nature and pervades all living existences.

142:7.7 (1604.2) 2. *Security and pleasure.* True fathers take great pleasure in providing for the needs of their children. Many fathers are not content with supplying the mere wants of their children but enjoy making provision for their pleasures also.

142:7.8 (1604.3) 3. *Education and training.* Wise fathers carefully plan for the education and adequate training of their sons and daughters. When young they are prepared for the greater responsibilities of later life.

142:7.9 (1604.4) 4. *Discipline and restraint.* Farseeing fathers also make provision for the necessary discipline, guidance, correction, and sometimes restraint of their young and immature offspring.

142:7.10 (1604.5) 5. *Companionship and loyalty.* The affectionate father holds intimate and loving intercourse with his children. Always is his ear open to their petitions; he is ever ready to share their hardships and assist them over their difficulties. The father is supremely interested in the progressive welfare of his progeny.

142:7.11 (1604.6) 6. *Love and mercy.* A compassionate father is freely forgiving; fathers do not hold vengeful memories against their children. Fathers are not like judges, enemies, or creditors. Real families are built upon tolerance, patience, and forgiveness.

142:7.12 (1604.7) 7. *Provision for the future.* Temporal fathers like to leave an inheritance for their sons. The family continue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Death only ends one generation to mark the beginning of another. Death terminates an individual life but not necessarily the family.

주(主)는 가족생활의 이들 모습을 지상의 자녀인 사람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인 하느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하였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나는 완전함 안에서 알고 있다. 이는 영원한 미래에서 너희가 달성해야만 하는 자녀신분을 나는 이제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길과,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완결하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길이, 내 안에서 넓게 열려져 있다.”

사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가 세례 받으시던 날에 요한이 선언하였던 것을 상기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主)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하였다.

예수는 신성한 아들, 우주 아버지의 충만한 자신감을 지닌 분이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충만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이제 그의 지상 일생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족하실 만큼 살았으며 이 육체로서의 육신화는 그로 하여금 사람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예수는 사람의 완전성이었다; 모든 진실한 신도들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그러한 완전성을 달성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사람에게 계시 하였고 자신 안에 하느님의 권역에서 완전케 된 자녀를 내 보였다.

예수가 여러 시간 동안 강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주(主)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적인 귀로 듣는 힘을 갖게 되겠느냐? 너는 이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는 것과 나의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적 가족, 중심아버지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신, 그 가족에서의 영적 자녀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느냐?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관련사들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들을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의 가족을 사용하는 것을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마음속에서는 왕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분리시킬 수는 없겠느냐? 나는 영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문자적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의미를 육신의 언어 안에서 번역하려고 고집 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적 왕국의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 관련사, 땅과 같은 웅졸한 관련

142:7.13 (1604.8) For hours the Master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these features of family life to the relations of man, the earth child, to God, the Paradise Father. And this was his conclusion: “This entire relationship of a son to the Father, I know in perfection, for all that you must attain of sonship in the eternal future I have now already attained. The Son of Man is prepared to ascen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so that in me is the way now open still wider for all of you to see God and, ere you have finished the glorious progression, to becom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142:7.14 (1604.9) When the apostles heard these startling words, they recalled the pronouncements which John made at the time of Jesus' baptism, and they also vividly recalled this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their preaching and teaching subsequent to the Master's death and resurrection.

142:7.15 (1604.10) Jesus is a divine Son, one in the Universal Father's full confidence. He had been with the Father and comprehended him fully. He had now lived his earth life to the full satisfaction of the Father, and this incarnation in the flesh had enabled him fully to comprehend man. Jesus was the perfection of man; he had attained just such perfection as all true believers are destined to attain in him and through him. Jesus revealed a God of perfection to man and presented in himself the perfected son of the realms to God.

142:7.16 (1605.1) Although Jesus discoursed for several hours, Thomas was not yet satisfied, for he said: “But, Master, we do not find that the Father in heaven always deals kindly and mercifully with us. Many times we grievously suffer on earth, and not always are our prayers answered. Where do we fail to grasp the meaning of your teaching?”

142:7.17 (1605.2) Jesus replied: “Thomas, Thomas, how long before you will acquire the ability to listen with the ear of the spirit? How long will it be before you discern that this kingdom is a spiritual kingdom, and that my Father is also a spiritual being? Do you not understand that I am teaching you as spiritual children in the spirit family of heaven, of which the fatherhead is an infinite and eternal spirit? Will you not allow me to use the earth family as an illustration of divine relationships without so literally applying my teaching to material affairs? In your minds cannot you separate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from the materi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age? When I speak the language of the spirit, why do you insist on translating my meaning into the language of the flesh just because I presume to employ commonplace and literal relationships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My children, I implore that

사들이나 인간의 평등과 정의(正義)라는 물질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기를 그만 두기 바란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너희는 영적 왕국의 대사 곧 영적 아버지의 특별한 대표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로서 말해야 한단 말이나? 너희가 영적 이해력에서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으로서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 끝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리고 그 언제라도 나의 영은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으로 갈 것이다.”

제 8 장. 남부 유대 지방에서

4월 말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반대가 너무 뚜렷해져서 주(主)와 사도들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일하러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5월 한 달 전부는 이들 도시에서 그리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다. 이 여행 중에는 아무런 대중 설교를 하지 않았고 단지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동안, 이 기간들 중의 얼마간을 예수와 아브너는 나지르인의 거류민단을 방문하면서 엔게디에서 지냈다. 세례자 요한이 이 곳 출신이었고 아브너는 이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많은 나지르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금욕적이며 괴벽스러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금식과 몇몇 형태의 자아-부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늘에서 내려 온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주(主)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추측하였지만, 12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부 유대 지방에서의 체류는 일한 결실을 맺고 휴식을 취한 시절이었다; 많은 혼들이 왕국으로 들어왔다. 6월 초까지는 예수에 대한 동요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주(主)와 사도들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위안을 주기 위하여 돌아갔다.

비록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와 그 근처에서 그 달 전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대중을 위한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겻세마네라고 불리던 그늘진 공원의 정원에서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날들을 지냈다. 이 공원은 기드온 시냇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올리브 산의

you cease to apply the teaching of the kingdom of the spirit to the sordid affairs of slavery, poverty, houses, and lands, and to the material problems of human equity and justice. These temporal matters are the concern of the men of this world, and while in a way they affect all men, you have been called to represent me in the world, even as I represent my Father. You are spiritual ambassadors of a spiritual kingdom, 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spirit Father. By this time it should be possible for me to instruct you as full-grown men of the spirit kingdom. Must I ever address you only as children? Will you never grow up in spirit perception? Nevertheless, I love you and will bear with you, even to the very end of our association in the flesh. And even then shall my spirit go before you into all the world.”

8. IN SOUTHERN JUDEA

^{142:8.1 (1605.3)} By the end of April the opposition to Jesus among the Pharisees and Sadducees had become so pronounced that the Master and his apostles decided to leave Jerusalem for a while, going south to work in Bethlehem and Hebron. The entire month of May was spent in doing personal work in these cities and among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villages. No public preaching was done on this trip, only house-to-house visitation. A part of this time, while the apostles taught the gospel and ministered to the sick, Jesus and Abner spent at Engedi, visiting the Nazarite colony. John the Baptist had gone forth from this place, and Abner had been head of this group. Many of the Nazarite brotherhood became believers in Jesus, but the majority of these ascetic and eccentric men refused to accept him as a teacher sent from heaven because he did not teach fasting and other forms of self-denial.

^{142:8.2 (1605.4)} The people living in this region did not know that Jesus had been born in Bethlehem. They always supposed the Master had been born at Nazareth, as did the vast majority of his disciples, but the twelve knew the facts.

^{142:8.3 (1605.5)} This sojourn in the south of Judea was a restful and fruitful season of labor; many souls were added to the kingdom. By the first days of June the agitation against Jesus had so quieted down in Jerusalem that the Master and the apostles returned to instruct and comfort believers.

^{142:8.4 (1605.6)} Although Jesus and the apostles spent the entire month of June in or near Jerusalem, they did no public teaching during this period. They lived for the most part in tents, which they pitched in a shaded park, or garden, known in that day as Gethsemane. This park was situated on the western slope of the Mount of Olives not far

서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식일인 주말에는 그들은 대개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안으로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많은 숫자의 관심 있는 문의자들이 그를 방문하려고 겟세마네로 나왔다. 어느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만나러 왔었으나 주(主)의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물론, 예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유대의 통치자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였지만; 그가 아무런 대중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가 먼저 번의 동요로 겁을 먹은 것으로 단정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러한 사적인 차원에서 계속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시문이라는 산헤드린의 회원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나선 6월의 마지막 날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관련사들이 조용하게 진행되어 갔는데, 시문은 유대의 통치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공표하였다. 곧 예수에 대해 우려하는 새로운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것은 너무 강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주(主)는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에 있는 도시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하였다.

from the brook Kidron. The Sabbath weekends they usually spent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Bethany. Jesus entered within the walls of Jerusalem only a few times, but a large number of interested inquirers came out to Gethsemane to visit with him. One Friday evening Nicodemus and one Joseph of Arimathea ventured out to see Jesus but turned back through fear even after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entrance to the Master's tent. And, of course, they did not perceive that Jesus knew all about their doings.

^{142:8.5 (1605.7)} When the rulers of the Jews learned that Jesus had returned to Jerusalem, they prepared to arrest him; but when they observed that he did no public preaching, they concluded that he had become frightened by their previous agitation and decided to allow him to carry on his teaching in this private manner without further molestation. And thus affairs moved along quietly until the last days of June, when one Simon, a member of the Sanhedrin, publicly espoused the teachings of Jesus, after so declaring himself before the rulers of the Jews. Immediately a new agitation for Jesus' apprehension sprang up and grew so strong that the Master decided to retire into the cities of Samaria and the Decapolis.

제 143 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감

⇨ 142

유랜시아 책

14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3 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감

색션

소개

- 제 1 장. 아켈라이스에서 설교
- 제 2 장. 자아-정복에 대한 교훈
- 제 3 장. 기분전환과 이완-휴식
- 제 4 장.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 제 5 장. 시카의 여인
- 제 6 장. 사마리아의 부흥
- 제 7 장. 기도와 경배에 대한 가르침들

PAPER 143

GOING THROUGH SAMARIA

SECTIONS

Introduction

- 1. Preaching at Archelais
- 2. Lesson on Self-Mastery
- 3. Diversion and Relaxation
- 4. The Jews and the Samaritans
- 5. The Woman of Sychar
- 6. The Samaritan Revival
- 7. Teachings about Prayer and Worship

소개

서기 27년 6월말에, 유대 종교 통치자들이 점점 더 심하게 반대함으로 인하여 예수와 12사도들은 그들의 천막과 변변치 않은 소지품들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베헤스에서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프나와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설교하였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한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들의 동네를 방문해 주기를 원하였다. 주(主)와 사도들은 이 지역에서 2주 이상이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국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 안티파트리스에서도 왔다.

남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가롯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에게 가졌던 자신들의 편견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유다로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7월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요단 가까이 있는 그리스 도시들인 파사엘리스와 아켈라이스로 출발할 준비를 하였다.

INTRODUCTION

143:0.1 (1607.1) AT THE end of June, A.D. 27, because of the increasing opposition of the Jewish religious rulers,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Jerusalem, after sending their tents and meager personal effects to be stored at the home of Lazarus at Bethany. Going north into Samaria, they tarried over the Sabbath at Bethel. Here they preached for several days to the people who came from Gophna and Ephraim. A group of citizens from Arimathea and Thamna came over to invite Jesus to visit their villages. The Master and his apostles spent more than two weeks teaching the Jews and Samaritans of this region, many of whom came from as far as Antipatris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143:0.2 (1607.2) The people of southern Samaria heard Jesus gladly, and the apostles, with the exception of Judas Iscariot, succeeded in overcoming much of their prejudice against the Samaritans. It was very difficult for Judas to love these Samaritans. The last week of July Jesus and his associates made ready to depart for the new Greek cities of Phasaelis and Archelais near the Jordan.

제 1 장. 아켈라이스에서 설교

8월 전반부에 사도 일행은 그리스 도시들인 아켈라이스와 파사엘리스에 본부를 두었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거의 이방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을 상대로 해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체험을 가졌는데, 이 두 도시들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마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사도들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새로운 반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도들과 가졌던 회의들 중 하나에서, 12사도들이 자기들 각자의 수고를 주제로 체험담을 반복하여 말하자, 예수는 왕국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빌립의 질문이 그들의 어려움들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主)여, 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러한 가르침들은 단지 약한 자들이나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종교가 강력하고 확고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성취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확인하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약하고 수동적인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서 곧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主)여, 그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가르침이 하늘의 것이며 이상적이라고 기꺼이 시인하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主)여, 이제 우리는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도마, 나다니엘, 시몬 젤로페, 마태로부터 왕국의 복음에 대한 비슷한 반대들에 대해 듣고 나신 후에, 예수가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격을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 한 가지를 이행할 것이며, 나의 가르침이 이 시대 혹은 다른 세대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 오해받는 것에 패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혹독한 단련이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없는 자손들의 현명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하도록 종종 강요한다. 아버지가 내리는 억제시키는 단련의 현명함과 사랑하는 동기를 자녀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파라다이스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주들의 우주를 지배한다. 모든 영적 실체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이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극의 관계이다. 그리고 오늘

1. PREACHING AT ARCHELAIS

143:1.1 (1607.3) The first half of the month of August the apostolic party made its headquarters at the Greek cities of Archelais and Phasaelis, where they had their first experience preaching to well-nigh exclusive gatherings of gentiles — Greeks, Romans, and Syrians — for few Jews dwelt in these two Greek towns. In contacting with these Roman citizens, the apostles encountered new difficulties in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of the coming kingdom, and they met with new objections to the teachings of Jesus. At one of the many evening conferences with his apostles, Jesus listened attentively to these objection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 twelve repeated their experiences with the subjects of their personal labors.

143:1.2 (1607.4) A question asked by Philip was typical of their difficulties. Said Philip: “Master, these Greeks and Romans make light of our message, saying that such teachings are fit for only weaklings and slaves. They assert that the religion of the heathen is superior to our teaching because it inspires to the acquirement of a strong, robust, and aggressive character. They affirm that we would convert all men into enfeebled specimens of passive nonresisters who would soon perish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ey like you, Master, and freely admit that your teaching is heavenly and ideal, but they will not take us seriously. They assert that your religion is not for this world; that men cannot live as you teach. And now, Master, what shall we say to these gentiles?”

143:1.3 (1607.5) After Jesus had heard similar objections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presented by Thomas, Nathaniel, Simon Zelotes, and Matthew, he said to the twelve:

143:1.4 (1608.1) “I have come into this worl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and to reveal his loving character to all mankind. That, my brethren, is my mission. And this one thing I will do, regardless of the misunderstanding of my teachings by Jews or gentiles of this day or of another generation. But you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even divine love has its severe disciplines. A father’s love for his son oftentimes impels the father to restrain the unwise acts of his thoughtless offspring. The child does not always comprehend the wise and loving motives of the father’s restraining discipline. But I declare to you that my Father in Paradise does rule a universe of universes by the compelling power of his love. Love is the greatest of all spirit realities. Truth is a liberating revelation, but love is the supreme relationship. And no matter what blunders your fellow men make in their world

날의 세상일들에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실책을 하던지 간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 진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존경을 담아서 인지하는 것과 사람의 형제신분을 사랑 넘치게 물질화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이 단지 노예들과 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느냐? 내가 선택한 사도들인 너희가 허약한 자들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한 자처럼 보였느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았느냐? 이 세대에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종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회개하라는 소명(召命)과 자녀 됨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표하였다. 왕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고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부여되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자비의 실천을 기뻐한다고 해서, 왕국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운 것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말라. 파라다이스로의 상승은 언제나 최극 모험, 영원함을 어렵게 성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왕국을 위한 봉사에 너희와 너희 동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용감한 남성다움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 복음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함께 싸우고 있는 너희 전우의 현존으로 용기가 강화되었을 때, 물리적 전쟁터의 전선에서 죽으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너희의 필사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네 생명을 조용하게 그리고 온전히 혼자서 내려놓는 일은 더 높고, 더 심오한 형태의 인간적 용기와 헌신을 요구한다.

“오늘날, 너희가 무저항의 복음을 가르치고 무폭력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너희는 이 가르침들에게 자신들의 영웅적인 헌신을 하여 모든 인류를 놀라게 할 사람들, 곧 왕국 복음을 믿는 진지한 신도들의 긴 행렬의 첫 번째 자원자(自願者)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전파하게 될 너희와 너희의 충성스러운 계승자들이 제시하는 것 보다 더 큰 용기와 용감함을 보여 준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육신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감성이다. 마음의 용감성이 더 높은 유형의 인간적 용기이지만, 최고의 그리고 최극의 것은 심오한 영적 실체의 깨우친 신념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충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가 하느님을—아는 사람의 영웅적 행위를 이룬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사람의 아들의 개인적 연관-동료들이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전부

management of today, in an age to come the gospel which I declare to you will rule this very world. The ultimate goal of human progress is the reverent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loving materialization of the brotherhood of man.

143:1.5 (1608.2) “But who told you that my gospel was intended only for slaves and weaklings? Do you, my chosen apostles, resemble weaklings? Did John look like a weakling? Do you observe that I am enslaved by fear? True, the poor and oppressed of this generation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The religions of this world have neglected the poor, but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Besides, the poor of this day are the first to heed the call to repentance and acceptance of sonship.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to be preached to all men — Jew and gentile, Greek and Roman, rich and poor, free and bond — and equally to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143:1.6 (1608.3) “Because my Father is a God of love and delights in the practice of mercy, do not imbibe the idea that the service of the kingdom is to be one of monotonous ease. The Paradise ascent is the supreme adventure of all time, the rugged achievement of eternity. The service of the kingdom on earth will call for all the courageous manhood that you and your coworkers can muster. Many of you will be put to death for your loyalty to the gospel of this kingdom. It is easy to die in the line of physical battle when your courage is strengthened by the presence of your fighting comrades, but it requires a higher and more profound form of human courage and devotion calmly and all alone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 love of a truth enshrined in your mortal heart.

143:1.7 (1608.4) “Today, the unbelievers may taunt you with preaching a gospel of nonresistance and with living lives of nonviolence, but you are the first volunteers of a long line of sincer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is kingdom who will astonish all mankind by their heroic devotion to these teachings. No armies of the world have ever displayed more courage and bravery than will be portrayed by you and your loyal successors who shall go forth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e good news —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The courage of the flesh is the lowest form of bravery. Mind bravery is a higher type of human courage, but the highest and supreme is uncompromising loyalty to the enlightened convictions of profound spiritual realities. And such courage constitutes the heroism of the God-knowing man. And you are all God-knowing men; you are in very truth the personal associates of the Son of Man.”

143:1.8 (1608.5) This was not all that Jesus said on

는 아니었지만, 그의 연설의 처음 부분이었으며, 그는 계속해서 장시간을 이러한 발표에 대한 설명과 예를 들어 주었다. 이것은 예수가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던 것 중에서 가장 열렬한 강연들 중의 하나였다. 주(主)는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것은 그가 깊은 감정과 진지함을 현시하면서 말씀하였던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들 중의 하나였다.

사도들의 대중 연설과 개인적 사명활동에서의 결과는 즉시 나타났는데; 바로 그 날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용기로 지배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12사도들은 왕국의 새로운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적극성의 정신을 계속해서 습득하였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주(主)의 다방면에 걸친 가르침의 소극적 덕목들과 수동적 명령으로의 설교하는 일에 그다지 많이 얽매이지는 않았다.

제 2 장. 자아-정복에 대한 교훈

주(主)는 인간 자아-통제의 완전한 표본이었다. 그는 자기가 욕을 먹을 때에도 욕하지 않았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아무 위협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적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의(正義)로우신 심판에 자신을 맡겼다.

어느 날 밤 회의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자아-부정을 실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자아-통제를 행하도록 분투해야 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은 진실로 자기 선조들의 빛과 법에 의거하여 정의로움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그것은 자아-검증과 자아-부정의 종교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잊어버림과 자아-통제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대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더욱 위대하다. 자아-정복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의 척도이며 그의 영적 발전의 표식이다. 옛 규율 안에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체로서, 너희는 믿고 그리고 기쁨을 향유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창조체가 되어 가야 한다; 옛 것은 지나쳐 멀리 보내야 한다; 보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너희의 사랑으로써, 너희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속하는 일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확신시켜야 한다.

“옛 길에 따라서, 너희는 삶의 법규들에 의해서 억제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리고 순응하는 길

that occasion, but it is the introduction of his address, and he went on at great length in amplification and in illustration of this pronouncement. This was one of the most impassioned addresses which Jesus ever delivered to the twelve. Seldom did the Master speak to his apostles with evident strong feeling, but this was one of those few occasions when he spoke with manifest earnestness, accompanied by marked emotion.

143:1.9 (1609.1) The result upon the public preaching and personal ministry of the apostles was immediate; from that very day their message took on a new note of courageous dominance. The twelve continued to acquire the spirit of positive aggression in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From this day forward they did not occupy themselves so much with the preaching of the negative virtues and the passive injunctions of their Master's many-sided teaching.

2. LESSON ON SELF-MASTERY

143:2.1 (1609.2) The Master was a perfected specimen of human self-control. When he was reviled, he reviled not; when he suffered, he uttered no threats against his tormentors; when he was denounced by his enemies, he simply committed himself to the righteous judgment of the Father in heaven.

143:2.2 (1609.3) At one of the evening conferences, Andrew asked Jesus: “Master, are we to practice self-denial as John taught us, or are we to strive for the self-control of your teaching? Wherein does your teaching differ from that of John?” Jesus answered: “John indeed taught you the way of righteousness in accordance with the light and laws of his fathers, and that was the religion of self-examination and self-denial. But I come with a new message of self-forgetfulness and self-control. I show to you the way of life as revealed to me by my Father in heaven.

143:2.3 (1609.4) “Verily, verily, I say to you, he who rules his own self is greater than he who captures a city. Self-mastery is the measure of man's moral nature and the indicator of his spiritual development. In the old order you fasted and prayed; as the new creature of the rebirth of the spirit, you are taught to believe and rejoice. In the Father's kingdom you are to become new creatures; old things are to pass away; behold I show you how all things are to become new. And by your love for one another you are to convince the world that you have passed from bondage to liberty, from death into life everlasting.

143:2.4 (1609.5) “By the old way you seek to suppress, obey, and conform to the rules of living;

을 추구하고 있다; 새 길에 따라서, 너희는 먼저 진리의 영에 의해 변환되고 그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함으로서 너희 안에 있는 혼이 강한 힘을 얻게 되며, 그렇게 너희는 인자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느님의 뜻을 확실하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신성한 본성의 공유자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하고 값진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처럼 너희의 신앙에 의해, 영의 변환에 의해 너희는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은 실제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자녀들이다. 자아-속박의 두려움과 자아-부정의 노예가 되는 옛날의 법 대신에, 새로운 영의 법이 자아-정복의 해방을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하는 것이다.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실체 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자연본성적 성향들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행동들을 악한 존재의 영향으로 돌리려고 번번히 생각해 왔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래 전에 너희에게, 인간의 가슴은 무엇보다도 기만적이고 때로는 지독하게 사악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쉽게 자아-기만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서 얼마나 쉽게 어리석은 두려움, 갖가지 욕망, 노예가 되어가는 쾌락, 악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복수하려는 증오에 이르기까지 빠져드는지 모르겠다!

“구원은 영(靈)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것이며, 육신에서의 자아-정의로운 행위의 덕분이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서의 두려움이나 자아-부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앙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되며 인애(仁愛)에 의해서 동료관계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자아와 육신의 욕망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인들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느님과 실제 평화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평화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항상-진보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봉사료 신성화 되도록 운명되어진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구하면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악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씻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드높아지는 특권이다.

“너희가 자녀 관계를 획득하는 것은 신앙에 기반을 두며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의 기쁨은 신성한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며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실체를 의심하도록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함이다. 자아의 정복에 대한 너희의 비결은, 사랑으로 늘 일하는, 내주하고 있는 영을 믿는 너희 신앙과 결속되어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신앙도 너희들 스스로 안에 가진 것이 아니며;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자신에 대하여 승리한 주인들, 하느님의

by the new way you are first transformed by the Spirit of Truth and thereby strengthened in your inner soul by the constant spiritual renewing of your mind, and so are you endowed with the power of the certain and joyous performance of the gracious,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Forget not — it is your personal faith in the exceedingl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of God that ensures your becoming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us by your faith and the spirit's transformation, you become in reality the temples of God, and his spirit actually dwells within you. If, then, the spirit dwells within you, you are no longer bondslaves of the flesh but free and liberated sons of the spirit. The new law of the spirit endows you with the liberty of self-mastery in place of the old law of the fear of self-bondage and the slavery of self-denial.

143:2.5 (1609.6) “Many times, when you have done evil, you have thought to charge up your acts to the influence of the evil one when in reality you have but been led astray by your own natural tendencies. Did not the Prophet Jeremiah long ago tell you that the human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sometimes even desperately wicked? How easy for you to become self-deceived and thereby fall into foolish fears, divers lusts, enslaving pleasures, malice, envy, and even vengeful hatred!

143:2.6 (1610.1) “Salvation is by the regeneration of the spirit and not by the self-righteous deeds of the flesh. You are justified by faith and fellowshipped by grace, not by fear and the self-denial of the flesh, albeit the Father's children who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are ever and always masters of the self and all that pertains to the desires of the flesh. When you know that you are saved by faith, you have real peace with God. And all who follow in the way of this heavenly peace are destined to be sanctified to the eternal service of the ever-advancing sons of the eternal God. Henceforth, it is not a duty but rather your exalted privilege to cleanse yourselves from all evils of mind and body while you seek for perfection in the love of God.

143:2.7 (1610.2) “Your sonship is grounded in faith, and you are to remain unmoved by fear. Your joy is born of trust in the divine word, and you shall not therefore be led to doubt the reality of the Father's love and mercy. It is the very goodness of God that leads men into true and genuine repentance. Your secret of the mastery of self is bound up with your faith in the indwelling spirit, which ever works by love. Even this saving faith you have not of yourselves; it also is the gift of God. And if you are the children of this living faith, you are no longer the bondslaves of self but rather the triumphant masters of yourselves, the liberated sons of God.

해방된 자녀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영으로 태어난다면, 너희는 자아-부정의 일생에서의 자아-의식하는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염려로서 살피는 일로부터 언제까지나 구원을 받으며, 즐거운 영적 왕국으로 옮겨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영의 열매들은 즐겁고 고상한 자아-통제의 가장 높은 유형의 핵심, 심지어는 이 세상의 필사 달성의 최고 높이—진정한 자아-정복—이다.”

제 3 장. 기본전환과 이완-휴식

이 무렵에, 신경과민과 감정적 강박감이 사도들과 그들의 직속 연관-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크게 일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것에 거의 적응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잘 지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이란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 이외에도, 최근의 예수의 발언이 그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증강시켰었다. 안드레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자신의 문제들과 난처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主)에게로 갔다. 예수가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였다: “안드레아, 그들이 그러한 분류에 그렇게 관여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과 그 일들을 논의할 수 없다. 나는 네가 요청한 일을 할 수가 없다—나는 이러한 개인적 공동체의 문제들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3일간의 휴식과 이완-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 나와 함께 사르타바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 쉬도록 하자고 전해라.

“이제 가서 11명의 형제들 각각에게 사적(私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主)가 휴식과 이완을 잠시 하려는데 우리와 같이 떠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많은 영적 시달림과 마음의 긴장을 체험하였으므로, 나는 아무도 이 휴가 동안에는 우리의 시련과 곤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너의 협조를, 내가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네 형제들 각각에게 다가가라.” 안드레는 주(主)가 지시한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각자의 체험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전체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문젯거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자 예수는 그들을 자신의 주위에 앉히고 말씀하였다: “내 형제들아, 너희 모두는 휴식의 소중함과 이완-휴식의 효능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복

143:2.8 (1610.3) “If, then, my children, you are born of the spirit, you are forever delivered from the self-conscious bondage of a life of self-denial and watchcare over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you are translated into the joyous kingdom of the spirit, whence you spontaneously show forth the fruits of the spirit in your daily lives; and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the essence of the highest type of enjoyable and ennobling self-control, even the heights of terrestrial mortal attainment — true self-mastery.”

3. DIVERSION AND RELAXATION

143:3.1 (1610.4) About this time a state of great nervous and emotional tension developed among the apostles and their immediate disciple associates. They had hardly become accustomed to living and working together. They were experiencing increasing difficulties in maintaining harmonious relations with John's disciples. The contact with the gentiles and the Samaritans was a great trial to these Jews. And besides all this, the recent utterances of Jesus had augmented their disturbed state of mind. Andrew was almost beside himself; he did not know what next to do, and so he went to the Master with his problems and perplexities.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e apostolic chief relate his troubles, he said: “Andrew, you cannot talk men out of their perplexities when they reach such a stage of involvement, and when so many persons with strong feelings are concerned. I cannot do what you ask of me — I will not participate in these personal social difficulties — but I will join you in the enjoyment of a three-day period of rest and relaxation. Go to your brethren and announce that all of you are to go with me up on Mount Sartaba, where I desire to rest for a day or two.

143:3.2 (1610.5) “Now you should go to each of your eleven brethren and talk with him privately, saying: ‘The Master desires that we go apart with him for a season to rest and relax. Since we all have recently experienced much vexation of spirit and stress of mind, I suggest that no mention be made of our trials and troubles while on this holiday. Can I depend upon you to co-operate with me in this matter?’ In this way privately and personally approach each of your brethren.” And Andrew did as the Master had instructed him.

143:3.3 (1611.1) This was a marvelous occasion in the experience of each of them; they never forgot the day going up the mountain. Throughout the entire trip hardly a word was said about their troubles. Upon reaching the top of the mountain, Jesus seated them about him while he said: “My brethren, you must all learn the value of rest and the efficacy of relaxation. You must realize that the

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잠시 동안 그것들을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다음, 휴식이나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새롭게 돌아가면, 너희는 더욱 단호해진 가슴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맑은 머리와 더욱 안정된 솜씨로 너희의 문제들을 쳐부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과 몸을 쉬게 하는 동안에 너희의 문제는 크기와 비율에서 여러 번 쪼그라들었다는 발견하게 된다.”

다음 날 예수는 12사도들 각자에게 토의 제목을 하나씩 주었다. 그들의 종교적 일과 관계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회상(回想)과 토의(討議)를 하며 하루 온 종일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가 점심 식사 때 식사기도—입 밖으로 내어서—까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그러한 형식을 무시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안드레의 머리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지나칠 정도로 가슴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마태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묶고 있었으므로 기금 조달에 매우 쪼들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과로하였고 최근에는 보통 때보다 더 성질이 심하였다. 유다는 주기적인 신경과민과 이기심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시몬은 자신의 애국심을 사람의 형제신분에서의 사랑으로 절충하려는 노력으로 특별히 격해 있었다. 빌립은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점점 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다니엘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된 이래로 유머가 줄어들었으며, 도마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단지 쌍둥이 형제만이 정상적이었고 평온하였다. 그들 모두는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난처해하고 있었다.

셋째 날에 그들이 산을 내려와 야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많은 힘든 문제들이 과장된 두려움의 산물이고 증강된 우려의 결과이며, 인간들의 많은 난처한 일들은 실제 안에서 실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중대한 발견을 하였다. 그들은 모든 그러한 분류들은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들에서 떠나감으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이 휴가로부터 돌아온 것이 이들 요한의 추종자들과의 그들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사도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의무에서 떠나 3일간의 휴가를 가진 결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바뀐 것을 보았고, 그들이 신경과민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자 실제로 기뻐하였다. 인간 접촉에 있어서의 단조로움은 분류들을 크게 불리고 어려움들을 확대시키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best method of solving some entangled problems is to forsake them for a time. Then when you go back fresh from your rest or worship, you are able to attack your troubles with a clearer head and a steadier hand, not to mention a more resolute heart. Again, many times your problem is found to have shrunk in size and proportions while you have been resting your mind and body.”

143:3.4 (1611.2) The next day Jesus assigned to each of the twelve a topic for discussion. The whole day was devoted to reminiscences and to talking over matters not related to their religious work. They were momentarily shocked when Jesus even neglected to give thanks — verbally — when he broke bread for their noontide lunch. This was the first time they had ever observed him to neglect such formalities.

143:3.5 (1611.3) When they went up the mountain, Andrew's head was full of problems. John was inordinately perplexed in his heart. James was grievously troubled in his soul. Matthew was hard pressed for funds inasmuch as they had been sojourning among the gentiles. Peter was overwrought and had recently been more temperamental than usual. Judas was suffering from a periodic attack of sensitiveness and selfishness. Simon was unusually upset in his efforts to reconcile his patriotism with the love of the brotherhood of man. Philip was more and more nonplused by the way things were going. Nathaniel had been less humorous since they had come in contact with the gentile populations, and Thomas was in the midst of a severe season of depression. Only the twins were normal and unperturbed. All of them were exceedingly perplexed about how to get along peaceably with John's disciples.

143:3.6 (1611.4) The third day when they started down the mountain and back to their camp, a great change had come over them. They had made the important discovery that many human perplexities are in reality nonexistent, that many pressing troubles are the creations of exaggerated fear and the offspring of augmented apprehension. They had learned that all such perplexities are best handled by being forsaken; by going off they had left such problems to solve themselves.

143:3.7 (1611.5) Their return from this holiday marked the beginning of a period of greatly improved relations with the followers of John. Many of the twelve really gave way to mirth when they noted the changed state of everybody's mind and observed the freedom from nervous irritability which had come to them as a result of their three days' vacation from the routine duties of life. There is always danger that monotony of human contact will greatly multiply perplexities and magnify difficulties.

아켈라이스와 파사엘리스라는 두 그리스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았지만, 12사도들은 오직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처음으로 일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쌓았다. 그 달 중순경 어느 월요일 아침에 예수가 안드레에게 말씀하였다: “이제 다 같이 사마리아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우물 근처의 수가라는 도시를 향해 즉시 떠났다.

제 4 장.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유대인들도 역시 사마리아인들과 반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악감정은 이렇게 연유되었다: 기원 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곤이 중부(中部)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25,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자리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쿿인, 세파르브인, 하마트인 후손들로 채웠다. 더 나아가 그 뒤에는, 아쉬바니팔이 다른 거류민단을 보내어 사마리아에 살게 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종교적 적대감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는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으려고 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알렉산더의 군대에 호의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였다. 그들의 우호에 보답하기 위하여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게리짐 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봉사 순서의 많은 부분을 본 따서 야훼와 자기들 종족의 하느님들에게 경배를 드렸고 많은 희생물을 바쳤다. 적어도 그들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게리짐 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였던, 마카비 시대까지도 이 경배를 계속하였다. 사도 빌립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일하면서 이 옛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많은 모임들을 가졌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반목은 매우 오래되고 역사적인 것이었다; 알렉산더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서로를 상대하지 않았다. 12사도들은 그리스에서 또는 다른 이방인 도시들인 데카폴리스나 시리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나, 주(主)가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하였을 때, 그것은 주(主)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엄중하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 년 넘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초월하는 개인적 충성심의 형태를 이미 발전시켜 왔었다.

제 5 장. 시카의 여인

143:3.8 (1611.6) Not many of the gentiles in the two Greek cities of Archelais and Phasaelis believed in the gospel, but the twelve apostles gained a valuable experience in this their first extensive work with exclusively gentile populations. On a Monday morning, about the middle of the month, Jesus said to Andrew: “We go into Samaria.” And they set out at once for the city of Sychar, near Jacob’s well.

4. THE JEWS AND THE SAMARITANS

143:4.1 (1612.1) For more than six hundred years the Jews of Judea, and later on those of Galilee also, had been at enmity with the Samaritans. This ill feeling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came about in this way: About seven hundred years B.C., Sargon, king of Assyria, in subduing a revolt in central Palestine, carried away and into captivity over twenty-five thousand Jews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installed in their place an almost equal number of the descendants of the Cuthites, Sepharvites, and the Hamathites. Later on, Ashurbanipal sent still other colonies to dwell in Samaria.

143:4.2 (1612.2) The religious enmity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dated from the return of the former from the Babylonian captivity, when the Samaritans worked to prevent the rebuilding of Jerusalem. Later they offended the Jews by extending friendly assistance to the armies of Alexander. In return for their friendship Alexander gave the Samaritans permission to build a temple on Mount Gerizim, where they worshiped Yahweh and their tribal gods and offered sacrifices much after the order of the temple services at Jerusalem. At least they continued this worship up to the time of the Maccabees, when John Hyrcanus destroyed their temple on Mount Gerizim. The Apostle Philip, in his labors for the Samaritans after the death of Jesus, held many meetings on the site of this old Samaritan temple.

143:4.3 (1612.3) The antagonisms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were time-honored and historic; increasingly since the days of Alexander they had had no dealings with each other. The twelve apostles were not averse to preaching in the Greek and other gentile cities of the Decapolis and Syria, but it was a severe test of their loyalty to the Master when he said, “Let us go into Samaria.” But in the year and more they had been with Jesus, they had developed a form of personal loyalty which transcended even their faith in his teachings and their prejudices against the Samaritans.

5. THE WOMAN OF SYCHAR

주(主)와 12사도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여행에서 지친 예수는, 시카로부터 필립이 음식물과 천막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간 동안, 그 우물가에 남아 계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근처에서 당분간 머물러 있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와 함께 남아 있려고 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권하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친절할 것이며, 오직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만이 우리를 해치기를 꾀한다.” 예수는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때는, 여름 날 저녁 거의 6시 경이었다.

야곱의 우물은 시카의 우물들보다 광물질이 적었으므로 식수(食水)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예수는 목이 말랐으나 우물에서 물을 길올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시카의 한 여인이 그녀의 물그릇을 가지고 다가와서 물을 길으려고 했을 때, 예수가 그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였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의 모습과 복장을 보고 예수가 유대인임을 알았으며 그의 억양에서 그가 갈릴리 유대인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날다였고,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유대인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하며 물을 청하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그 당시에는 자아-존중의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더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온당하지 않았던 때였다. 따라서 날다는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가진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만일 네가 단지 이해할 수 있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生水) 한 모금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길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신과 자기 아들들과 그의 가축을 다 먹게 하였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그의 속에서 영원한 생명(永生)에 이르기까지 솟아오르는 원기 회복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이제부터는 물을 길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훌륭한 유대인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날다는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의 거리낌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주(主)의 얼굴에서 고결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친절함을 통상적인 치근덕거림으로 오해하였으며, 그의 팔투를 자기에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덕적으로 방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유혹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143:5.1 (1612.4) When the Master and the twelve arrived at Jacob's well, Jesus, being weary from the journey, tarried by the well while Philip took the apostles with him to assist in bringing food and tents from Sychar, for they were disposed to stay in this vicinity for a while. Peter and the Zebedee sons would have remained with Jesus, but he requested that they go with their brethren, saying: “Have no fear for me; these Samaritans will be friendly; only our brethren, the Jews, seek to harm us.” And it was almost six o'clock on this summer's evening when Jesus sat down by the well to await the return of the apostles.

143:5.2 (1612.5) The water of Jacob's well was less mineral than that from the wells of Sychar and was therefore much valued for drinking purposes. Jesus was thirsty, but there was no way of getting water from the well. When, therefore, a woman of Sychar came up with her water pitcher and prepared to draw from the well, Jesus said to her, “Give me a drink.” This woman of Samaria knew Jesus was a Jew by his appearance and dress, and she surmised that he was a Galilean Jew from his accent. Her name was Nalda and she was a comely creature. She was much surprised to have a Jewish man thus speak to her at the well and ask for water, for it was not deemed proper in those days for a self-respecting man to speak to a woman in public, much less for a Jew to converse with a Samaritan. Therefore Nalda asked Jesus, “How is it that you, being a Jew, ask for a drink of me, a Samaritan woman?” Jesus answered: “I have indeed asked you for a drink, but if you could only understand, you would ask me for a draught of the living water.” Then said Nalda: “But, Sir,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nce, then, have you this living water?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is well, and who drank thereof himself and his sons and his cattle also?”

143:5.3 (1613.1) Jesus replied: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s of the water of the living spirit shall never thirst. And this living water shall become in him a well of refreshment springing up even to eternal life.” Nalda then said: “Give me this water that I thirst not, neither come all the way hither to draw. Besides, anything which a Samaritan woman could receive from such a commendable Jew would be a pleasure.”

143:5.4 (1613.2) Nalda did not know how to take Jesus' willingness to talk with her. She beheld in the Master's face the countenance of an upright and holy man, but she mistook friendliness for commonplace familiarity, and she misinterpreted his figure of speech as a form of making advances to her. And being a woman of lax morals, she was minded openly to become flirtatious, when Jesus, looking straight into her eyes, with a commanding

때, 예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엄 있는 음성으로, “여인아,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였다. 이 명령이 날다의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주(主)의 친절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투를 오해하였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녀는 겁을 먹었다; 자신이 비범한 사람의 현존 앞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적당한 대답을 마음속에서 찾지 못하면서 당황하여 말하였다: “저는 남편이 없으므로 남편을 불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네가 진실을 말하였구나. 네가 한 때는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 때 날다는 침착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선한 본성이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비도덕적인 여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에 의해 냉혹하고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으며 몹시 비참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한 그리스 남자의 아내로 살 것을 동의했었다. 날다는 이제 생각 없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고 후회 막심하여 주(主)에게 여쭙었다: “나의 주님, 당신에게 한 저의 말투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은 제가 보기에는 성스러운 사람이거나 어쩌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리고 그 이래로 행하였던 것—신학과 철학적 토론으로 바꿈으로써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비켜 가는—을 행하면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 도움을 주(主)로부터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를 그녀 자신의 필요성에서 신학적 논쟁으로 재빨리 돌렸다. 게리짐 산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이 하느님을 경배 드리는 올바른 장소입니까?”

예수는 이 여인의 혼이 그 조물주와 직접 그리고 접촉함으로 찾는 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지만, 그녀의 혼 속에는 또한 좀 더 나은 일생의 길을 원하고 있음도 보셨다. 결국, 날다의 가슴속에 생명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대하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도 하느님들의 종교와 이방인의 철학들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경배를 드리는 대상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하느님 곧 야훼만을 경배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시켰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이미 지금 와 있다—내가 한 말을 믿어야만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배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만 한다. 너희의 구원은 다른 자들이 어떻게 혹은 어디

voice said, “Woman, go get your husband and bring him hither.” This command brought Nalda to her senses. She saw that she had misjudged the Master’s kindness; she perceived that she had misconstrued his manner of speech. She was frightened; she began to realize that she stood in the presence of an unusual person, and groping about in her mind for a suitable reply, in great confusion, she said, “But, Sir, I cannot call my husband, for I have no husband.” Then said Jesus: “You have spoken the truth, for, while you may have once had a husband, he with whom you are now living is not your husband. Better it would be if you would cease to trifle with my words and seek for the living water which I have this day offered you.”

143:5.5 (1613.3) By this time Nalda was sobered, and her better self was awakened. She was not an immoral woman wholly by choice. She had been ruthlessly and unjustly cast aside by her husband and in dire straits had consented to live with a certain Greek as his wife, but without marriage. Nalda now felt greatly ashamed that she had so unthinkingly spoken to Jesus, and she most penitently addressed the Master, saying: “My Lord, I repent of my manner of speaking to you, for I perceive that you are a holy man or maybe a prophet.” And she was just about to seek direct and personal help from the Master when she did what so many have done before and since — dodged the issue of personal salvation by turning to the discussion of theology and philosophy. She quickly turned the conversation from her own needs to a theological controversy. Pointing over to Mount Gerizim, she continued: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and yet you would say that in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men ought to worship; which, then, is the right place to worship God?”

143:5.6 (1613.4) Jesus perceived the attempt of the woman’s soul to avoid direct and searching contact with its Maker, but he also saw that there was present in her soul a desire to know the better way of life. After all, there was in Nalda’s heart a true thirst for the living water; therefore he dealt patiently with her, saying: “Woman, let me say to you that the day is soon coming when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will you worship the Father. But now you worship that which you know not, a mixture of the religion of many pagan gods and gentile philosophies. The Jews at least know whom they worship; they have removed all confusion by concentrating their worship upon one God, Yahweh. But you should believe me when I say that the hour will soon come — even now is — when all sincer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it is just such worshi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they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Your salvation comes not from

에서 경배를 드리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너 자신의 가슴에 받음으로써 온다.”

그러나 날다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개인적 일생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혼의 지위에 대한 당황스런 논제를 피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시도를 하였다. 다시 한 번 그녀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요한이 가르치기를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해방자라 칭할 것이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그러자 예수가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며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씀하기를,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이니라.”

이것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땅위에서 예수가 이미 이룩한 아들관계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연한 발표이었다; 그것은 한 여인에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신성한 눈이 바라본 그 여인은 그녀 자신의 열망으로 죄를 범한 것에 비하여 더욱 많이 죄에 저항해 오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열망하는 혼을 가진 인간 존재이며, 그것을 진심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날다가 좀 더 나은 일과 좀 더 고상한 삶의 길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갈망을 막 표현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속의 실제 열망을 이제 말할 준비가 되자마자, 12사도들이 시카로부터 돌아왔고, 예수가 이 여인과—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 둘이서—친근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물건들을 내려놓고는 한 옆에 서서,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가 날다에게 말씀하였다: “여인아, 너의 길을 가거라;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부터는 새 일생을 살 것이다. 네가 생명수를 받아들여 왔으니 새로운 기쁨이 네 혼속에 용솟음 칠 것이며 너는 지고자의 딸이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사도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도시로 도망쳤다.

그녀는 도시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야곱의 우물로 빨리 가시오. 거기에서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개종시키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러 야곱의 우물가에 모였다. 주(主)는 그들에게 생명수, 곧 내주(內住)하는 영의 선물에 대해 좀 더 말씀하였다.

사도들은 예수가 여인들과, 그것도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들, 심지어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여인들과 기꺼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충격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였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여인들, 소위 부도덕한 여인들까지도 하느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딸들이 되고, 영속하는 일생을 향한 후보자가 되어가는 혼을 가진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는 19세기 이후까지도,

knowing how others should worship or where but by receiving into your own heart this living water which I am offering you even now.”

143:5.7 (1614.1) But Nalda would make one more effort to avoid the discussion of the embarrassing question of her personal life on earth and the status of her soul before God. Once more she resorted to questions of general religion, saying: “Yes, I know, Sir, that John has preached about the coming of the Converter, he who will be called the Deliverer, and that, when he shall come, he will declare to us all things” — and Jesus, interrupting Nalda, said with startling assurance, “I who speak to you am he.”

143:5.8 (1614.2) This was the first direct, positive, and undisguised pronouncement of his divine nature and sonship which Jesus had made on earth; and it was made to a woman, a Samaritan woman, and a woman of questionable character in the eyes of men up to this moment, but a woman whom the divine eye beheld as having been sinned against more than as sinning of her own desire and as now being a human soul who desired salvation, desired it sincerely and wholeheartedly, and that was enough.

143:5.9 (1614.3) As Nalda was about to voice her real and personal longing for better things and a more noble way of living, just as she was ready to speak the real desire of her heart, the twelve apostles returned from Sychar, and coming upon this scene of Jesus' talking so intimately with this woman — this Samaritan woman, and alone — they were more than astonished. They quickly deposited their supplies and drew aside, no man daring to reprove him, while Jesus said to Nalda: “Woman, go your way; God has forgiven you. Henceforth you will live a new life. You have received the living water, and a new joy will spring up within your soul, and you shall become a daughter of the Most High.” And the woman, perceiving the disapproval of the apostles, left her waterpot and fled to the city.

143:5.10 (1614.4) As she entered the city, she proclaimed to everyone she met: “Go out to Jacob's well and go quickly, for there you will see a man who told me all I ever did. Can this be the Converter?” And ere the sun went down, a great crowd had assembled at Jacob's well to hear Jesus. And the Master talked to them more about the water of life, the gift of the indwelling spirit.

143:5.11 (1614.5) The apostles never ceased to be shocked by Jesus' willingness to talk with women, women of questionable character, even immoral women. It was very difficult for Jesus to teach his apostles that women, even so-called immoral women, have souls which can choose God as their Father, thereby becoming daughters of God and candidates for life everlasting. Even nineteen centuries later many show the same unwillingness

많은 이들이 주(主)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와 똑같은 마음 내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까지도, 그의 일생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망 사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애절한 죽음보다는 그의 행복하고도 하느님을-게시하였던 일생에 좀 더 관심을 두었어야 했다.

날다가 다음 날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 하였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 말해 주지 않았으며, 예수가 12사도들에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날다는 예수가 자기에게 “자신이 전에 했던 모든 것”을 말씀하였다고 요한에게 말하였다. 요한은 날다와의 이 만남에 대해 예수께 물어보려고 여러 번 원했으나, 결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 대한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하였었지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변화무쌍한 일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는데,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이러한 자아-게시를 주(主)의 표정과 말씀에 연관시켰다. 예수는 결코 그녀에게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버린 이래로 네 명의 다른 남자와 동거했었는데 예수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녀의 모든 과거와 함께, 너무나 생생하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타났기에, 그녀는 뒤이어서 요한에게 예수가 그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서 실제로 말했다고 반복했다.

to grasp the Master's teachings. Even the Christian religion has been persistently built up around the fact of the death of Christ instead of around the truth of his life. The world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his happy and God-revealing life than with his tragic and sorrowful death.

143:5.12 (1614.6) Nalda told this entire story to the Apostle John the next day, but he never revealed it fully to the other apostles, and Jesus did not speak of it in detail to the twelve.

143:5.13 (1615.1) Nalda told John that Jesus had told her “all I ever did.” John many times wanted to ask Jesus about this visit with Nalda, but he never did. Jesus told her only one thing about herself, but his look into her eyes and the manner of his dealing with her had so brought all of her checkered life in panoramic review before her mind in a moment of time that she associated all of this self-revelation of her past life with the look and the word of the Master. Jesus never told her she had had five husbands. She had lived with four different men since her husband cast her aside, and this, with all her past, came up so vividly in her mind at the moment when she realized Jesus was a man of God that she subsequently repeated to John that Jesus had really told her all about herself.

제 6 장. 사마리아의 부흥

날다가 사람의 무리들을 예수를 만나 보라고 시카로부터 불러들이던 저녁에, 12사도들은 음식을 가지고 막 돌아 왔으며, 하루 종일 굶어 시장했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대신에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예수께 청했다. 그러나 예수는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로 한 결심을 고집하였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좀 드시라고 안드레가 그에게 설득하려 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여인이 마실 것 뿐만 아니라 음식도 드렸는가?” 예수가 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들을 돌아보며 12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까지 이러 저러한 시간이 남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 도시로부터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밭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수확하는 자는 삿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 열매를 거둬드리는데; 결국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향유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6. THE SAMARITAN REVIVAL

143:6.1 (1615.2) On the evening that Nalda drew the crowd out from Sychar to see Jesus, the twelve had just returned with food, and they besought Jesus to eat with them instead of talking to the people, for they had been without food all day and were hungry. But Jesus knew that darkness would soon be upon them; so he persisted in his determination to talk to the people before he sent them away. When Andrew sought to persuade him to eat a bite before speaking to the crowd, Jesus said, “I have meat to eat that you do not know about.” When the apostles heard this, they said among themselves: “Has any man brought him aught to eat? Can it be that the woman gave him food as well as drink?” When Jesus heard them talking among themselves, before he spoke to the people, he turned aside and said to the twelve: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You should no longer say it is such and such a time until the harvest. Behold these people coming out from a Samaritan city to hear us; I tell you the fields are already white for the harvest. He who reaps receives wages and gathers this fruit to eternal life; consequently the sowers and the reapers rejoice together. For herein is the saying true: ‘One sows and another

곳으로 거두러 보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관련시켜 말씀하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시카로 들어갔으며 게리짐 산에 야영지를 세우기 전까지 이를 동안 설교하였다. 수가의 많은 거주민들이 복음을 믿었으며 세례를 받기 원했으나 예수의 사도들은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

게리짐 산에서 야영한 첫 날 밤에, 사도들은 예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꾸중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그 대신에 “하느님의 왕국에서 중심이 되는 실체들”이라는, 기억에 남을 만한 강연을 하였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가치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리고 사실들이 그 신학 안에서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기가 매우 쉽다. 십자가의 사실이 나중의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되어질 종교의 중심적 진리는 아니다.

게리짐 산에서의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는 자기(예수)가 형제-친구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친구로 여겨 주기를 원하였다. 그는, 이 신성한 관계들의 관찰에서 진리가 가장 위대한 선언인 것과 똑같이, 사랑이 세상에서—우주에서—가장 위대한 관계라는 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충만하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안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왕국 복음을 설교하러 사마리아의 중심부를 다시 방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12사도들은 8월말까지 게리짐 산에서 야영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도시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왕국의 기쁜 소식—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설교하였고 밤에는 야영지에서 지냈다. 예수와 12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도시들에서 했던 과업은, 많은 혼들을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에서 신도들에 대한 비참한 처형이 일어나 사도들이 나중에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후에, 이 지역에서의 빌립의 놀라운 과업을 위한 길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였다.

제 7 장. 기도와 경배에 대한 가르침들

게리짐 산에서의 저녁 회의들에서 예수는 많은 위대한 진리들을 가르치셨는데 특히 다음의 것들을 강조하였다:

참된 종교는 창조자와의 자아-의식 관계 속에

reaps.' I am now sending you to reap that whereon you have not labored; others have labored, and you are about to enter into their labor.” This he said in reference to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143:6.2 (1615.3) Jesus and the apostles went into Sychar and preached two days before they established their camp on Mount Gerizim. And many of the dwellers in Sychar believed the gospel and made request for baptism, but the apostles of Jesus did not yet baptize.

143:6.3 (1615.4) The first night of the camp on Mount Gerizim the apostles expected that Jesus would rebuke them for their attitude toward the woman at Jacob's well, but he made no reference to the matter. Instead he gave them that memorable talk on “The realities which are central in the kingdom of God.” In any religion it is very easy to allow values to become disproportionate and to permit facts to occupy the place of truth in one's theology. The fact of the cross became the very center of subsequent Christianity; but it is not the central truth of the religion which may be derived from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143:6.4 (1615.5) The theme of Jesus' teaching on Mount Gerizim was: That he wants all men to see God as a Father-friend just as he (Jesus) is a brother-friend. And again and again he impressed upon them that love is the greatest relationship in the world — in the universe — just as truth is the greatest pronouncement of the observation of these divine relationships.

143:6.5 (1616.1) Jesus declared himself so fully to the Samaritans because he could safely do so, and because he knew that he would not again visit the heart of Samaria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143:6.6 (1616.2) Jesus and the twelve camped on Mount Gerizim until the end of August. They preach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 the fatherhood of God — to the Samaritans in the cities by day and spent the nights at the camp. The work which Jesus and the twelve did in these Samaritan cities yielded many souls for the kingdom and did much to prepare the way for the marvelous work of Philip in these regions after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subsequent to the dispersion of the apostles to the ends of the earth by the bitter persecution of believers at Jerusalem.

7. TEACHINGS ABOUT PRAYER AND WORSHIP

143:7.1 (1616.3) At the evening conferences on Mount Gerizim, Jesus taught many great truths, and in particular he laid emphasis on the following:

143:7.2 (1616.4) True religion is the act of an individual

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혼(魂)의 행동이다; 조직된 종교는 개별적 종교가들의 경배를 사람들이 사회화시키려는 시도이다.

경배—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사색—은 봉사, 즉 물질적 실체와의 접촉과 교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일은 오락과 교대되어야만 한다; 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심오한 철학은 운율이 있는 시로 압박감이 해소되어야 한다. 삶의 팽팽한 잡아당김—개인성의 시간 긴장—은 경배에서의 평온 가득함으로 이완되어야 한다. 우주 안에서 개인성 고립의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불안의 느낌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적인 깊은 사색으로 그리고 최극자에 대해 시도되는 실체화 실현으로 해독(解毒)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사고(思考)를 더욱 적게, 그러나 실체화하는 것을 더욱 많게 만들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도는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고안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찰력을 확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경배는 앞으로의 보다 나은 일생을 예상하고 그래서 이들 새로운 영적 의의(意義)를 현재의 일생에 반영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으로 지탱시키는 것이지만, 경배는 신성하게 창조적인 것이다.

경배는 많은 이에게 봉사하는 영감을 얻기 위하여 한분을 쳐다보는 것에 관한 기법이다. 경배는, 혼이 물질적 우주로부터 초연함이 확장된 범위와 동시에 혼이 모든 창조의 영적 실체들과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범위를 재는 척도이다.

기도는 자아를-상기하는 것이다—숭고한 사고이다; 경배는 자아를-망각하는 것이다—초(超)사고이다. 경배는 노력을 쏟지않는 집중이며, 참되고 이상적인 혼 휴식이며, 일종의 평안이 넘치는 영적 분발이다.

경배는 한 부분이 자신을 전체와; 유한자가 무한자와; 자녀가 아버지와; 시간이 시각을 치는 단계의 활동 안에서 영원과, 정체성을 확인을 이루어가는 활동이다. 경배는 신성한 아버지와 개인적 교체행위, 인간의 혼-영이 신선하고 창조적이며, 형제우애에서의 그리고 열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야영지에 있던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들의 단지 몇 가지만을 파악했을 뿐이었지만, 다른 세계들은 파악하였으며, 이 땅의 다른 세대들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soul in its self-conscious relations with the Creator; organized religion is man's attempt to *socialize* the worship of individual religionists.

143:7.3 (1616.5) Worship — contemplation of the spiritual — must alternate with service, contact with material reality. Work should alternate with play; religion should be balanced by humor. Profound philosophy should be relieved by rhythmic poetry. The strain of living — the time tension of personality — should be relaxed by the restfulness of worship. The feelings of insecurity arising from the fear of personality isolation in the universe should be antidoted by the faith contemplation of the Father and by the attempted realization of the Supreme.

143:7.4 (1616.6) Prayer is designed to make man less thinking but more *realizing*; it is not designed to increase knowledge but rather to expand insight.

143:7.5 (1616.7) Worship is intended to anticipate the better life ahead and then to reflect these new spiritual significances back onto the life which now is. Prayer is spiritually sustaining, but worship is divinely creative.

143:7.6 (1616.8) Worship is the technique of looking to the *One* for the inspiration of service to the *many*. Worship is the yardstick which measures the extent of the soul's detachment from the material universe and its simultaneous and secure attachment to the spiritual realities of all creation.

143:7.7 (1616.9) Prayer is self-reminding — sublime thinking; worship is self-forgetting — superthinking. Worship is effortless attention, true and ideal soul rest, a form of restful spiritual exertion.

143:7.8 (1616.10) Worship is the act of a part identifying itself with the Whole; the finite with the Infinite; the son with the Father; time in the act of striking step with eternity. Worship is the act of the son's personal communion with the divine Father, the assumption of refreshing, creative, fraternal, and romantic attitudes by the human soul-spirit.

143:7.9 (1616.11) Although the apostles grasped only a few of his teachings at the camp, other worlds did, and other generations on earth will.

제 144 편 길보아와 데카폴리스에서

⇨ 143

유랜시아 책

14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4 편 길보아와 데카폴리스에서

섹션

소개

제 1 장. 길보아에서의 야영 생활

제 2 장. 기도에 관한 강연

제 3 장. 믿는 자의 기도

제 4 장. 기도에 대해 더 하신 설명

제 5 장. 기도의 다른 형식들

제 6 장. 요한의 사도들과의 회의

제 7 장. 데카폴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제 8 장. 펠라 근처에 있는 야영지에서

제 9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개

9월과 10월은 길보아산 비탈위의 외떨어진 천막에서 물러나 지냈다. 예수는 9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자신의 사도들과 함께 홀로 지내면서 그들에게 왕국의 진리들에 관한 가르침과 지시를 주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이 때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의 경계인 이 지역으로 물러나 지낸 데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통치자들의 반목이 매우 커졌으며;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과 예수가 어떤 면에서든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며 여전히 요한을 감옥에 잡아둔 채, 그를 석방하는 것과 처형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유대 또는 갈릴리 지방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외에도 세 번째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의 영도자들과 예수의 사도들 간에 짙은 긴장감이 서서히 증강하고 있었는데, 신도의 수가 늘어갈 수록 그 감정이 점점 더 격화되었다.

예수는, 가르침과 설교에 있어서는 이제 예비적인 일들이 거의 끝났다는 사실, 다음 단계는 그의 지상(地上) 일생에서의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

PAPER 144

AT GILBOA AND IN THE DECAPOLI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Gilboa Encampment

2. The Discourse on Prayer

3. The Believer's Prayer

4. More about Prayer

5. Other Forms of Prayer

6. Conference with John's Apostles

7. In the Decapolis Cities

8. In Camp near Pella

9. Death of John the Baptist

INTRODUCTION

144:0.1 (1617.1) SEPTEMBER and October were spent in retirement at a secluded camp upon the slopes of Mount Gilboa. The month of September Jesus spent here alone with his apostles, teaching and instructing them in the truths of the kingdom.

144:0.2 (1617.2) There were a number of reasons why Jesus and his apostles were in retirement at this time on the borders of Samaria and the Decapolis. The Jerusalem religious rulers were very antagonistic; Herod Antipas still held John in prison, fearing either to release or execute him, while he continued to entertain suspicions that John and Jesus were in some way associated. These conditions made it unwise to plan for aggressive work in either Judea or Galilee. There was a third reason: the slowly augmenting tension between the leaders of John's disciples and the apostles of Jesus, which grew wors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believers.

144:0.3 (1617.3) Jesus knew that the days of the preliminary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were about over, that the next move involved the

막 수고를 시작하는 것에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는 이 일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시험이 되거나 곤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는 한동안 은거하여 지내면서 요한이 처형되거나 혹은 석방되어 연합으로 그들의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도들을 재훈련시키며 데카폴리스의 도시들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장. 길보아에서의 야영생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12 사도들은 예수께 더욱 헌신하게 되었으며, 왕국의 업무에 점점 더 열중하였다. 그들의 헌신은 대부분이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다양한 가르침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예수의 본성이나 혹은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된 의의(意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자신들이 은거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1. 왕국 복음에 대한 그들의 납득과 신앙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2.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3. 세례자 요한의 숙명을 기다리기 위하여.

길보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는 12사도들에게 자신의 초기 일생과 헤르몬 산에서의 체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자신의 세례 직후에 있었던, 언덕에서의 40일 기간 동안의 체험도 어느 정도 밝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체험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직접 당부하였다.

이 9월의 주간들 동안, 그들은 휴식과 방문을 하며 지냈는데, 예수가 처음에 자기들을 부르셔서 봉사하게 한 이래로 자기들이 갖게 된 체험들에 대해 회상해 보았고, 그 때까지 주(主)가 자신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조화-협동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 모두는 이것이 오랫동안 휴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 채었다. 그들은 유대 또는 갈릴리 지방에서 곧 있을 자신들의 대중을 위한 수고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최후선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국이 왔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관한 확실한 관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요한과 안드레는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였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솔직히 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마태, 빌립, 시몬 켈로페는 확신이 서지 않은 채 혼동되어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모든 논쟁에 무관심하였고, 배반자 유다는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하였다.

beginning of the full and final effort of his life on earth, and he did not wish the launching of this undertaking to be in any manner either trying or embarrassing to John the Baptist. Jesus had therefore decided to spend some time in retirement rehearsing his apostles and then to do some quiet work in the cities of the Decapolis until John should be either executed or released to join them in a united effort.

1. THE GILBOA ENCAMPMENT

144:1.1 (1617.4) As time passed, the twelve became more devoted to Jesus and increasingly committed to the work of the kingdom. Their devotion was in large part a matter of personal loyalty. They did not grasp his many-sided teaching; they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nature of Jesus or the significance of his bestowal on earth.

144:1.2 (1617.5) Jesus made it plain to his apostles that they were in retirement for three reasons:

144:1.3 (1617.6) 1. To confirm their understanding of, an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44:1.4 (1617.7) 2. To allow opposition to their work in both Judea and Galilee to quiet down.

144:1.5 (1617.8) 3. To await the fate of John the Baptist.

144:1.6 (1617.9) While tarrying on Gilboa, Jesus told the twelve much about his early life and his experiences on Mount Hermon; he also revealed something of what happened in the hills during the forty days immediately after his baptism. And he directly charg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about these experiences until after he had returned to the Father.

144:1.7 (1618.1) During these September weeks they rested, visited, recounted their experiences since Jesus first called them to service, and engaged in an earnest effort to co-ordinate what the Master had so far taught them. In a measure they all sensed that this would be their last opportunity for prolonged rest. They realized that their next public effort in either Judea or Galilee would mark the beginning of the final proclamation of the coming kingdom, but they had little or no settled idea as to what the kingdom would be when it came. John and Andrew thought the kingdom had already come; Peter and James believed that it was yet to come; Nathaniel and Thomas frankly confessed they were puzzled; Matthew, Philip, and Simon Zelotes were uncertain and confused; the twins were blissfully ignorant of the controversy; and Judas Iscariot was silent, noncommittal.

예수는 이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영지 가까이 있는 산에서 혼자 보내셨다. 이따금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나, 기도나 교제하기 위해 혼자 계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수의 세례 직후에 페레아 언덕에서 지냈던 40일에 뒤이어 일어난, 이 시기를 그의 아버지와의 기도로서 교제를 가진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또 예수가 경배를 드린 것으로 말하는 것도 모순되지 만, 오히려 이 시기를 그의 아버지와의 사적(私的) 교제로서 언급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확하겠다.

9월 한 달 동안의 토의들의 중심 주제는 기도와 경배였다. 그들이 경배에 대한 토의를 여러 날한 뒤에 예수가 끝으로 기도에 관한 기억에 남을 만한 강연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도마가 “주(主)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었다.

요한은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다. 예수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요한의 기도 형식을 금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매우 일찍부터 자신들의 주(主)가 그러한 고정된 틀에 박힌 기도의 실천 관행을 충분히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했다. 12사도들은 예수가 인정하는 기도의 형식이 어떤 것이지를 알기 원하였다. 그리하여 예수가 이때에 도마의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기도 형식을 하나 가르칠 것을 허락한 것은, 주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기도문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예수의 이 교훈은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체류하던 셋째 주간의 어느 날 오후에 실시되었다.

제 2 장. 기도에 관한 강연

“요한은 진실로 너희에게 간단한 기도 형식을 가르쳤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을 언제까지나 정화해 주옵소서. 아멘!’ 그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자신의 혼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일련의 그리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기도는 영(靈)을 향한 혼(魂)의 태도에서의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다; 기도는 아들관계의 교제이며 동료관계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가, 영에 의해 쓰였을 때는, 협동을 이루는 영적 진보로 이끌어 준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능적 경배로 이끌어주는 영적 교제의 한 형태이다. 진정으로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늘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지한 태도이다.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144:1.8 (1618.2) Much of this time Jesus was alone on the mountain near the camp. Occasionally he took with him Peter, James, or John, but more often he went off to pray or commune alone. Subsequent to the baptism of Jesus and the forty days in the Perean hills, it is hardly proper to speak of these seasons of communion with his Father as prayer, nor is it consistent to speak of Jesus as worshipping, but it is altogether correct to allude to these seasons as personal communion with his Father.

144:1.9 (1618.3) The central theme of the discussions throughout the entire month of September was prayer and worship. After they had discussed worship for some days, Jesus finally delivered his memorable discourse on prayer in answer to Thomas's request: "Master, teach us how to pray."

144:1.10 (1618.4) John had taught his disciples a prayer, a prayer for salvation in the coming kingdom. Although Jesus never forbade his followers to use John's form of prayer, the apostles very early perceived that their Master did not fully approve of the practice of uttering set and formal prayers. Nevertheless, believers constantly requested to be taught how to pray. The twelve longed to know what form of petition Jesus would approve. And it was chiefly because of this need for some simple petition for the common people that Jesus at this time consented, in answer to Thomas's request, to teach them a suggestive form of prayer. Jesus gave this lesson one afternoon in the third week of their sojourn on Mount Gilboa.

2. THE DISCOURSE ON PRAYER

144:2.1 (1618.5) "John indeed taught you a simple form of prayer: 'O Father, cleanse us from sin, show us your glory, reveal your love, and let your spirit sanctify our hearts forevermore, Amen!' He taught this prayer that you might have something to teach the multitude. He did not intend that you should use such a set and formal petition as the expression of your own souls in prayer.

144:2.2 (1618.6) "Prayer is entirely a personal and spontaneous expression of the attitude of the soul toward the spirit; prayer should be the communion of sonship and the expression of fellowship. Prayer, when indited by the spirit, leads to co-operative spiritual progress. The ideal prayer is a form of spiritual communion which leads to intelligent worship. True praying is the sincere attitude of reaching heavenward for the attainment of your ideals.

144:2.3 (1619.1)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oul and

하게 하려는 너희의 시도에서 끈질기게 계속 너희를 이끌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나의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빵 세 덩어리를 내게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네게 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면, 너희는 끈질기게 계속 너희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 것과 네가 그에게 제공할 아무 음식도 없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그가 너희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너희에게 빵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대로 너희에게 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것처럼 너희의 끈질긴 계속이 필사 사람으로부터도 특혜를 얻을 수가 있다면, 영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끈질긴 계속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꺼이 내미는 손들로부터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나서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와 같이 구하는 자는 모두 받는다; 찾아나서는 자는 발견한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식이 어리석게 간청하고 있다면, 자식의 그릇된 청원의 관점에서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서 주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만약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현명하지 못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이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아이에게 생선이 필요한데, 그 물에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도 그 뱀을 청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 인간도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는지를 알고, 너희 자식들에게 좋고 알맞은 선물을 어떻게 주는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영과 다른 많은 축복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았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였다. 이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불공평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곧 속으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 내가 그녀를 옹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며, 너희의 간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집요함은, 비록 하느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땅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영적 접수성을 위한 너희 혼의 수용능력을 커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신앙을 거의

should lead you to be persistent in your attempt to ascertain the Father's will. If any one of you has a neighbor, and you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Friend, lend me three loaves, for a friend of mine on a journey has come to see me,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and if your neighbor answers, 'Trouble me not, for the door is now shut and the children and I are in bed; therefore I cannot rise and give you bread,' you will persist, explaining that your friend hungers, and that you have no food to offer him. I say to you, though your neighbor will not rise and give you bread because he is your friend, yet because of your importunity he will get up and give you as many loaves as you need. If, then, persistence will win favors even from mortal man, how much more will your persistence in the spirit win the bread of life for you from the willing hands of the Father in heaven. Again I say to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to you. For every 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of salvation will be opened.

144:2.4 (1619.2) “Which of you who is a father, if his son asks unwisely, would hesitate to give in accordance with parental wisdom rather than in the terms of the son's faulty petition? If the child needs a loaf, will you give him a stone just because he unwisely asks for it? If your son needs a fish, will you give him a watersnake just because it may chance to come up in the net with the fish and the child foolishly asks for the serpent? If you, then, being mortal and finite, know how to answer prayer and give good and appropriate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spirit and many additional blessings to those who ask him?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become discouraged.

144:2.5 (1619.3)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a certain judge who lived in a wicked city. This judge feared not God nor had respect for man. Now there was a needy widow in that city who came repeatedly to this unjust judge, saying, 'Protect me from my adversary.' For some time he would not give ear to her, but presently he said to himself: 'Though I fear not God nor have regard for man, yet because this widow ceases not to trouble me, I will vindicate her lest she wear me out by her continual coming.' These stories I tell you to encourage you to persist in praying and not to intimate that your petitions will change the just and righteous Father above. Your persistence, however, is not to win favor with God but to change your earth attitude and to enlarge your soul's capacity for spirit receptivity.

144:2.6 (1619.4) “But when you pray, you exercise so

발휘하지 못한다. 참된 신앙은, 혼의 확대와 영적 향상의 길에 가로놓인 물질적 어려움이라는 산들도 옮기게 될 것이다.”

제 3 장. 믿는 자의 기도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예수가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기도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였다. 기도에 관한 이 강연을 듣고 난 후, 야고보 세베대가 말하였다: “참으로 좋습니다, 주(主)여,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형식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자주 간청하는 새로운 신도들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 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우리의 빵을 주시고;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당신처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도들이 신도들을 위한 모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기도문들을 가르쳤으며, 모든 다른 위대한 선생들도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들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의 종교 교사들은 25 내지 30개의 고정된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회당에서나 길거리의 모퉁이에서까지도 낭송했다. 예수는 특히 대중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혐오하였다. 12사도들은 이때까지 그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겨우 몇 번 정도만 목격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온 밤을 기도나 경배로 지새우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기도 방식이나 형식을 무척 알고 싶어 하였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청하였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대중

little faith. Genuine faith will remove mountains of material difficulty which may chance to lie in the path of soul expansion and spiritual progress.”

3. THE BELIEVER'S PRAYER

144:3.1 (1619.5) But the apostles were not yet satisfied; they desired Jesus to give them a model prayer which they could teach the new disciples. After listening to this discourse on prayer, James Zebedee said: “Very good, Master, but we do not desire a form of prayer for ourselves so much as for the newer believers who so frequently beseech us, ‘Teach us how acceptably to pray to the Father in heaven.’”

144:3.2 (1619.6) When James had finished speaking, Jesus said: “If, then, you still desire such a prayer, I would present the one which I taught my brothers and sisters in Nazareth”:

144:3.3 (1620.1) Our Father who is in heaven,

144:3.4 (1620.2) Hallowed be your name.

144:3.5 (1620.3)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144:3.6 (1620.4)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44:3.7 (1620.5) Give us this day our bread for tomorrow;

144:3.8 (1620.6) Refresh our souls with the water of life.

144:3.9 (1620.7) And forgive us every one our debts

144:3.10 (1620.8)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144:3.11 (1620.9) Save us in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144:3.12 (1620.10) And increasingly make us perfect like yourself.

144:3.13 (1620.11) It is not strange that the apostles desired Jesus to teach them a model prayer for believers. John the Baptist had taught his followers several prayers; all great teachers had formulated prayers for their pupils. The religious teachers of the Jews had some twenty-five or thirty set prayers which they recited in the synagogues and even on the street corners. Jesus was particularly averse to praying in public. Up to this time the twelve had heard him pray only a few times. They observed him spending entire nights at prayer or worship, and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the manner or form of his petitions. They were really hard pressed to know what to answer the multitudes when they asked to be taught how to pray as John had taught his

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언제나 남 몰래 기도할 것을 12사도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그들 자신들끼리만 자연 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도록 지시하였다.

예수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상승한 후에,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던 이 기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끝마치는 것이 많은 신도들의 실천 관행이 되어 갔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두 줄이 빠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 기도문에 보태졌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는 나사렛 집에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공동체 형식의 기도문을 가르치셨다. 그는 형식을 갖춘 개인적 기도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단지 집단, 가족,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간청들을 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자청해서 하지 않았다.

예수는 효력이 있는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사심 없음—홀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님—믿음—신앙에 따름. 성실—가슴에서의 정직함. 지능적—빛에 따름. 신뢰성—아버지의 모든-지혜의 뜻에 복종함.

1. 사심 없음—홀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님
2. 믿음—신앙에 따름.
3. 성실—가슴에서의 정직함.
4. 지능적—빛에 따름.
5. 신뢰성—아버지의 모든-지혜의 뜻에 복종함.

예수가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12사도들을 위해서였다. 주(主)는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와의 교제를 남독하는 본성의 경배를 많이 드리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제 4 장. 기도에 대해 더 하신 설명

기도에 관한 강연이 있는 후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주(主)께 가장 중요하고 경건한 이 실천 관행에 관해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경배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 용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어떤 청원이든지 진지하고 갈망에 찬 반복은, 그러한 기도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무분별하던지 또는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영적 접수성을 위한 혼의 힘을 확대시키는 일에 결

disciples.

144:3.14 (1620.12) Jesus taught the twelve always to pray in secret; to go off by themselves amidst the quiet surroundings of nature or to go in their rooms and shut the doors when they engaged in prayer.

144:3.15 (1620.13) After Jesus' death and ascension to the Father it became the practice of many believers to finish this so-called Lord's prayer by the addition of —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Still later on, two lines were lost in copying, and there was added to this prayer an extra clause, reading: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more.”

144:3.16 (1620.14) Jesus gave the apostles the prayer in collective form as they had prayed it in the Nazareth home. He never taught a formal personal prayer, only group, family, or social petitions. And he never volunteered to do that.

144:3.17 (1620.15) Jesus taught that effective prayer must be:

- 144:3.18 (1620.16) 1. Unselfish — not alone for oneself.
- 144:3.19 (1620.17) 2. Believing — according to faith.
- 144:3.20 (1620.18) 3. Sincere — honest of heart.
- 144:3.21 (1620.19) 4. Intelligent — according to light.
- 144:3.22 (1620.20) 5. Trustful — in submission to the Father's all-wise will.

144:3.23 (1620.21) When Jesus spent whole nights on the mountain in prayer, it was mainly for his disciples, particularly for the twelve. The Master prayed very little for himself, although he engaged in much worship of the nature of understanding communion with his Paradise Father.

4. MORE ABOUT PRAYER

144:4.1 (1620.22) For days after the discourse on prayer the apostles continued to ask the Master questions regarding this all-important and worshipful practice. Jesus' instruction to the apostles during these days, regarding prayer and worship, may be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44:4.2 (1621.1) The earnest and longing repetition of any petition, when such a prayer is the sincere expression of a child of God and is uttered in faith, no matter how ill-advised or impossible of direct answer, never fails to expand the soul's capacity

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아들관계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자녀도 아들이나 딸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없다. 지상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는 은총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영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신성한 아들관계—는 작은 어린아이가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너희가 정의로움—진보하는 성격 발달—은 획득하지만, 아들관계는 너희가 은총에 의하여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받는다.

기도가 예수를 이끌어서, 그의 혼이 우주들의 우주의 최극 통치자들과의 초(超)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기도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을 진정한 경배의 교제로 이끌어줄 것이다. 접수성에 대한 혼의 영적 수용능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개인적으로 충당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하늘 축복의 분량을 결정한다.

기도와 그것에 관련된 경배는 일생의 매일의 진부한 일과로부터, 물질적 실존의 고되고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것은 영성화된 자아-실현과 지능적이 그리고 종교적 달성의 개별존재성에 가까이 이르는 큰길이다.

기도는 해로운 내면-성찰에 대한 해독제이다. 적어도 주(主)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기도는 혼에 그렇게 매우 유익한 사명활동이다. 예수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유익한 영향들을 이용하였다. 주(主)는 평소에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도하였다. 자신의 지상(地上) 일생의 큰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한 번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는 인류종족들의 물질문명 한 가운데에 있는 영(靈) 생명의 숨이다. 경배는 쾌락을-찾아나서는 필사자들의 세대를 위한 구원이다.

기도가 혼의 영적 건전지를 재충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도 좋은 것 같이, 것처럼 경배는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영의 우주 방송을 잡아채려고 혼 안에서 조율하고 있는 행동에 비교될 수도 있다.

기도는 자녀가 자신의 영 아버지를 진지하게 그리고 갈망하면서 쳐다보는 표정이다; 그것은 인간 의지를 신성한 의지와 교환하고 있는 정신적 과정이다. 기도는 어떤 무엇으로 있는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 되어있어야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성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

예수의 긴 철야(徹夜)기도에 그렇게 자주 동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主)가 기도를 거의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천적으로 모든 예수의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침묵으로—하였다.

for spiritual receptivity.

144:4.3 (1620.10) In all praying, remember that sonship is a *gift*. No child has aught to do with *earning* the status of son or daughter. The earth child comes into being by the will of its parents. Even so, the child of God comes into grace and the new life of the spirit by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refore must the kingdom of heaven — divine sonship — be *received* as by a little child. You earn righteousness — progressive character development — but you receive sonship by grace and through faith.

144:4.4 (1620.11) Prayer led Jesus up to the supercommunion of his soul with the Supreme Ruler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Prayer will lead the mortals of earth up to the communion of true worship. The soul's spiritual capacity for receptivity determines the quantity of heavenly blessings which can be personally appropriated and consciously realized as an answer to prayer.

144:4.5 (1620.12) Prayer and its associated worship is a technique of detachment from the daily routine of life, from the monotonous grind of material existence. It is an avenue of approach to spiritualized self-realization and individuality of intellectual and religious attainment.

144:4.6 (1620.13) Prayer is an antidote for harmful introspection. At least, prayer as the Master taught it is such a beneficent ministry to the soul. Jesus consistently employed the beneficial influence of praying for one's fellows. The Master usually prayed in the plural, not in the singular. Only in the great crises of his earth life did Jesus ever pray for himself.

144:4.7 (1620.14)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pirit life in the midst of the material civilization of the races of mankind. Worship is salvation for the pleasure-seeking generations of mortals.

144:4.8 (1620.15) As prayer may be likened to recharging the spiritual batteries of the soul, so worship may be compared to the act of tuning in the soul to catch the universe broadcasts of the infinit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144:4.9 (1620.16) Prayer is the sincere and longing look of the child to its spirit Father; it is a psychologic process of exchanging the human will for the divine will. Prayer is a part of the divine plan for making over that which is into that which ought to be.

144:4.10 (1620.17) One of the reasons why Peter, James, and John, who so often accompanied Jesus on his long night vigils, never heard Jesus pray, was because their Master so rarely uttered his prayers as spoken words. Practically all of Jesus' praying was done in the spirit and in the heart — silently.

모든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제 5 장. 기도의 다른 형식들

때때로, 예수의 땅에서 머무르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는 여러 개의 다른 기도 형식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것을 단지 다른 방법들을 예시하면서 가져온 것이며 그리고 그는 이들 “비유적인 기도들”이 군중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그 기도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사람이 사는 다른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는 이 사실을 12사도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안에 우주의 영역들이 존재해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의 성격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현시되시며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보인 것처럼 불완전하게나마 우리를 통해 현시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날 활기찬 빛의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영속하는 힘, 영광스러운 내주하심이 당신의 것이오니,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구한 선물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오니, 그렇게 영속적인 진리가 되소서.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적인 부모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격을 주시옵소서.

자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당신이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시게 하소서

천사가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로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 향상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악한 범죄로부터 구

144:4.11 (1620.18) Of all the apostles, Peter and James came the nearest to comprehending the Master's teaching about prayer and worship.

5. OTHER FORMS OF PRAYER

144:5.1 (1621.11)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remainder of Jesus' sojourn on earth, he brought to the notice of the apostles several additional forms of prayer, but he did this only in illustration of other matters, and he enjoined that these “parable prayers” should not be taught to the multitudes. Many of them were from other inhabited planets, but this fact Jesus did not reveal to the twelve. Among these prayers were the following:

144:5.2 (1622.1) Our Father in whom consist the universe realms,

144:5.3 (1622.2) Uplifted be your name and all-glorious your character.

144:5.4 (1622.3) Your presence encompasses us, and your glory is manifested

144:5.5 (1622.4) Imperfectly through us as it is in perfection shown on high.

144:5.6 (1622.5) Give us this day the vivifying forces of light,

144:5.7 (1622.6) And let us not stray into the evil bypaths of our imagination,

144:5.8 (1622.7) For yours is the glorious indwelling, the everlasting power,

144:5.9 (1622.8) And to us, the eternal gift of the infinite love of your Son.

144:5.10 (1622.9) Even so, and everlastingly true.

144:5.11 (1622.10) Our creative Parent, who is in the center of the universe,

144:5.12 (1622.11) Bestow upon us your nature and give to us your character.

144:5.13 (1622.12) Make us sons and daughters of yours by grace

144:5.14 (1622.13) And glorify your name through our eternal achievement.

144:5.15 (1622.14) Your adjusting and controlling spirit give to live and dwell within us

144:5.16 (1622.15) That we may do your will on this sphere as angels do your bidding in light.

144:5.17 (1622.16) Sustain us this day in our progress along the path of truth.

144:5.18 (1622.17) Deliver us from inertia, evil, and all

원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애로움을 보인 것처럼 우리를 참으소서.

우리 창조체의 가슴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손을 잡고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걸어갈 때 한 발자국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에 신실한 우리의 영들을 당신 자신의 품속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사오니,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화-협동하소서.

우리를 영원으로 가는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능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세라핌천사 무리의 현존과 인도에 대한

신성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 올려 주시고;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옹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당신 자신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소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왕 신분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자아의 충분한 통달을 증여해 주소서.

sinful transgression.

144:5.19 (1622.18) Be patient with us as we show loving-kindness to our fellows.

144:5.20 (1622.19) Shed abroad the spirit of your mercy in our creature hearts.

144:5.21 (1622.20) Lead us by your own hand, step by step, through the uncertain maze of life,

144:5.22 (1622.21) And when our end shall come, receive into your own bosom our faithful spirits.

144:5.23 (1622.22) Even so, not our desires but your will be done.

144:5.24 (1622.23) Our perfect and righteous heavenly Father,

144:5.25 (1622.24) This day guide and direct our journey.

144:5.26 (1622.25) Sanctify our steps and co-ordinate our thoughts.

144:5.27 (1622.26) Ever lead us in the ways of eternal progress.

144:5.28 (1622.27) Fill us with wisdom to the fullness of power

144:5.29 (1622.28) And vitalize us with your infinite energy.

144:5.30 (1622.29) Inspire us with the divine consciousness of

144:5.31 (1622.30) The presence and guidance of the seraphic hosts.

144:5.32 (1622.31) Guide us ever upward in the pathway of light;

144:5.33 (1622.32) Justify us fully in the day of the great judgment.

144:5.34 (1622.33) Make us like yourself in eternal glory

144:5.35 (1622.34) And receive us into your endless service on high.

144:5.36 (1622.35) Our Father who is in the mystery,

144:5.37 (1622.36) Reveal to us your holy character.

144:5.38 (1622.37) Give your children on earth this day

144:5.39 (1622.38) To see the way, the light, and the truth.

144:5.40 (1622.39) Show us the pathway of eternal progress

144:5.41 (1622.40) And give us the will to walk therein.

144:5.42 (1622.41) Establish within us your divine kingship

144:5.43 (1622.42) And thereby bestow upon us the full mastery of self.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길로 들게 하지 마시고;

생명수 곁으로 영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당신을 더욱 더 닮게 하심을 기뻐하옵소서.

마침내, 신성한 아들을 위하여

영원한 품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시오니,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분이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시여,

당신의 성스러운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영의 증여와 선물로

당신이 가지신 스스로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시고,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이 구체에서 불완전하게 당신을 다시 보이옵소서.

우리에게 형제신분의 즐거운 사명활동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봉사의 길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우리로 당신의 인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이게 하소서.

모든 일을 잘 다스리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창조체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자애로움을 내리시고

우리의 자비로 이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완결되어지면,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며,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혼의 조력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144:5.44 (1622.43) Let us not stray into paths of darkness and death;

144:5.45 (1622.44) Lead us everlastingly beside the waters of life.

144:5.46 (1622.45) Hear these our prayers for your own sake;

144:5.47 (1622.46) Be pleased to make us more and more like yourself.

144:5.48 (1623.1) At the end, for the sake of the divine Son,

144:5.49 (1623.2) Receive us into the eternal arms.

144:5.50 (1623.3) Even so, not our will but yours be done.

144:5.51 (1623.4) Glorious Father and Mother, in one parent combined,

144:5.52 (1623.5) Loyal would we be to your divine nature.

144:5.53 (1623.6) Your own self to live again in and through us

144:5.54 (1623.7) By the gift and bestowal of your divine spirit,

144:5.55 (1623.8) Thus reproducing you imperfectly in this sphere

144:5.56 (1623.9) As you are perfectly and majestically shown on high.

144:5.57 (1623.10) Give us day by day your sweet ministry of brotherhood

144:5.58 (1623.11) And lead us moment by moment in the pathway of loving service.

144:5.59 (1623.12) Be you ever and unfailingly patient with us

144:5.60 (1623.13) Even as we show forth your patience to our children.

144:5.61 (1623.14) Give us the divine wisdom that does all things well

144:5.62 (1623.15) And the infinite love that is gracious to every creature.

144:5.63 (1623.16) Bestow upon us your patience and loving-kindness

144:5.64 (1623.17) That our charity may enfold the weak of the realm.

144:5.65 (1623.18) And when our career is finished, make it an honor to your name,

144:5.66 (1623.19) A pleasure to your good spirit, and a satisfaction to our soul helpers.

144:5.67 (1623.20) Not as we wish, our loving Father, but as you desire the eternal good of your mortal

당신의 인간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그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며 모든 능력의 중심이시여,

당신의 온전히 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존경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자비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도록 힘을 주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양분을 주시고;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명수로 새롭게 하소서.

매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필사자 마지막이 마침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당신자신에게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 나오게 보내주옵소서.

결실의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능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끝이 없이 우주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우주의 신비한 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비를 존경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나이다.

어스름 안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탄원할 때에.

정의로움의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 한 낮에 있게 하소서.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에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듯이 당신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옵소서.

children,

144:5.68 (1623.21) Even so may it be.

144:5.69 (1623.22) Our all-faithful Source and all-powerful Center,

144:5.70 (1623.23) Reverent and holy be the name of your all-gracious Son.

144:5.71 (1623.24) Your bounties and your blessings have descended upon us,

144:5.72 (1623.25) Thus empowering us to perform your will and execute your bidding.

144:5.73 (1623.26) Give us moment by moment the sustenance of the tree of life;

144:5.74 (1623.27) Refresh us day by day with the living waters of the river thereof.

144:5.75 (1623.28) Step by step lead us out of darkness and into the divine light.

144:5.76 (1623.29) Renew our minds by the transformations of the indwelling spirit,

144:5.77 (1623.30) And when the mortal end shall finally come upon us,

144:5.78 (1623.31) Receive us to yourself and send us forth in eternity.

144:5.79 (1623.32) Crown us with celestial diadems of fruitful service,

144:5.80 (1623.33) And we shall glorify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Influence.

144:5.81 (1623.34) Even so, throughout a universe without end.

144:5.82 (1623.35) Our Father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s of the universe,

144:5.83 (1623.36) Honored be your name, revered your mercy, and respected your judgment.

144:5.84 (1623.37) Let the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us at noontime,

144:5.85 (1623.38) While we beseech you to guide our wayward steps in the twilight.

144:5.86 (1623.39) Lead us by the hand in the ways of your own choosing

144:5.87 (1623.40) And forsake us not when the path is hard and the hours are dark.

144:5.88 (1623.41) Forget us not as we so often neglect and forget you.

144:5.89 (1623.42) But be you merciful and love us as we desire to love you.

144:5.90 (1623.43) Look down upon us in kindness and forgive us in mercy

144:5.91 (1623.44)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장엄한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거가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유용한 생명을
영속하게 하소서.

우주들의 하느님이 그의 영을 충만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이 영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세라핌천사 무리들의 사랑 많은 사
명활동으로

세대 끝까지 아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나 점점 더 당신자신과 닮게 하
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파라다
이스의 품안으로 받아 주소서.

참으로 그러하시오니, 증여되는 아들의 이름
으로

사도들은 이러한 기도들을 대중을 위한 가르
침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게시들이 사도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예수는 이것들 그리고 다른 모형의 기
도들을 12사도들의 사사로운 가르침에 관련하
면서 예제로 사용하였는데, 이 기록에서 이들 7개의
표본 기도들이 옮겨 쓸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되
었다.

144:5.97 (1624.97) As we in justice forgive those who
distress and injure us.

144:5.92 (1624.1) May the love, devotion, and bestowal
of the majestic Son

144:5.93 (1624.2) Make available life everlasting with
your endless mercy and love.

144:5.94 (1624.3) May the God of universes bestow
upon us the full measure of his spirit;

144:5.95 (1624.4) Give us grace to yield to the leading
of this spirit.

144:5.96 (1624.5) By the loving ministry of devoted
seraphic hosts

144:5.97 (1624.6) May the Son guide and lead us to the
end of the age.

144:5.98 (1624.7) Make us ever and increasingly like
yourself

144:5.99 (1624.8) And at our end receive us into the
eternal Paradise embrace.

144:5.100 (1624.9) Even so, in the name of the
bestowal Son

144:5.101 (1624.10) And for the honor and glory of the
Supreme Father.

144:5.102 (1624.11) Though the apostles were not at
liberty to present these prayer lessons in their
public teachings, they profited much from all of
these revelations in thei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s. Jesus utilized these and other prayer
models as illustr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ntimate instruction of the twelve, and specific
permission has been granted for transcribing
these seven specimen prayers into this record.

제 6 장. 요한의 사도들과의 회의

10월 1일경 빌립과 몇 명의 동료 사도들이 가
까운 마을에서 음식을 사고 있는 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을 만나게 되었다. 시장(市
場)에서의 이런 우연한 만남의 결과로 예수의 사
도들과 요한의 사도들이 길보아 야영지에서 삼 주
일 동안의 회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요한이 최
근에 예수를 본받아 12명의 영도자들을 사도들로
임명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요한이 자신의 충
성스러운 지지자들 중 우두머리인 아브너의 요청
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이 공동 회합의
첫 주일 동안 내내 길보아 야영지에 있었지만, 마
지막 두 주일 동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이 달의 두 번째 주 초순경에, 아브너는 길보
아 야영지에 있던 자신의 모든 연관-동료들을 소
집하였고, 예수의 사도들과의 회합에 참석할 준비
를 마쳤다. 이들 24명은 삼 주일 동안 하루에 3번

6. CONFERENCE WITH JOHN'S APOSTLES

144:6.1 (1624.12) Around the first of October, Philip
and some of his fellow apostles were in a near-by
village buying food when they met some of the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As a result of this
chance meeting in the market place there came
about a three weeks' conference at the Gilboa
camp between the apostles of Jesus and the
apostles of John, for John had recently appointed
twelve of his leaders to be apostles, following the
precedent of Jesus. John had done this in
response to the urging of Abner, the chief of his
loyal supporters. Jesus was present at the Gilboa
camp throughout the first week of this joint
conference but absented himself the last two
weeks.

144:6.2 (1624.13) By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eek
of this month, Abner had assembled all of his
associates at the Gilboa camp and was prepared
to go into council with the apostles of Jesus. For

씩, 일주일에 셋새 동안 회합을 가졌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오전, 오후, 밤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주(主)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공동 토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한사코 그들의 토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에 걸쳐 강연을 허락하였다. 예수가 24명의 사람들에게 하였던 강연들은 동정심, 협조, 관용에 관한 것이었다.

안드레와 아브너는 두 사도 집단들의 공동 회의에서 사회를 번갈아 맡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토의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과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거듭하여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갔으나, 단지 다음의 대답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 문제와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개별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대리인이며, 집단에 대한 대리인은 아니다. 너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인 문제들에서 다양한 인간 해석들에 대한 조화-협동이라든지 종교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너희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운명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비(非)영적 의미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너희가 결론에 도달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내가 나의 충분한 동의와 진정한 협조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자유로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나는 2주 동안 떠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 올 것이니, 나에게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곳 이외의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가 산을 내려 가셨는데, 그 후 그들은 2주 동안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24명의 사람들은, 주(主)가 떠난 영향으로 매우 좌절되었으므로, 다시 자신들의 문제들 가운데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하였다. 어쨌든, 한 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핵심적인 토론으로 돌아갔으며, 예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집단들이 첫 번째로 동의하였던 항목은 예수가 최근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이 기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일에 양쪽 사도들은 투표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요한이 살아있는 한, 그가 감옥에 있든지 석방되든지에 관계없이 두 12사도 집단들은 현재의 자신들의 일을 계속할 것과 그때마다 쌍방의 동의를 얻은 장소에서 일 주일 동안의 연관 회의를 매 3달마다 갖는 것이었다.

three weeks these twenty-four men were in session three times a day and for six days each week. The first week Jesus mingled with them between their forenoon, afternoon, and evening sessions. They wanted the Master to meet with them and preside over their joint deliberations, but he steadfastly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ir discussions, though he did consent to speak to them on three occasions. These talks by Jesus to the twenty-four were on sympathy, co-operation, and tolerance.

144:6.3 (1624.14) Andrew and Abner alternated in presiding over these joint meetings of the two apostolic groups. These men had many difficulties to discuss and numerous problems to solve. Again and again would they take their troubles to Jesus, only to hear him say: “I am concerned only with your personal and purely religious problems. I am the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to the individual, not to the group. If you are in personal difficulty in your relations with God, come to me, and I will hear you and counsel you in the solution of your problem. But when you enter upon the co-ordination of divergent human interpretations of religious questions and upon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you are destined to solve all such problems by your own decisions. Albeit, I am ever sympathetic and always interested, and when you arrive at your conclusions touching these matters of nonspiritual import, provided you are all agreed, then I pledge in advance my full approval and hearty co-operation. And now, in order to leave you unhampered in your deliberations, I am leaving you for two weeks. Be not anxious about me, for I will return to you. I will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for we have other realms besides this one.”

144:6.4 (1625.1) After thus speaking, Jesus went down the mountainside, and they saw him no more for two full weeks. And they never knew where he went or what he did during these days. It was some time before the twenty-four could settle down to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ir problems, they were so disconcerted by the absence of the Master. However, within a week they were again in the heart of their discussions, and they could not go to Jesus for help.

144:6.5 (1625.2) The first item the group agreed upon was the adoption of the prayer which Jesus had so recently taught them. It was unanimously voted to accept this prayer as the one to be taught believers by both groups of apostles.

144:6.6 (1625.3) They next decided that, as long as John lived, whether in prison or out, both groups of twelve apostles would go on with their work, and that joint meetings for one week would be held every three months at places to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문제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가 어떤 말인도 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그들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요한이 살아 있는 한, 혹은 그들이 공동으로 이 결정을 수정하기까지는, 단지 요한의 사도들만이 신도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며 예수의 사도들만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요한이 죽을 때까지 두 명의 요한의 사도가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동행하였는데, 그것은 세례가 왕국의 관련사들로는 밖으로 내보이는 동맹으로서,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공동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 동의된 것은, 요한이 죽을 경우에 요한의 사도들이 예수께 자청하여 나와 그의 지도를 따를 것이며, 예수나 그의 사도들의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었다.

그 다음에는, 요한이 죽을 경우에 예수의 사도들이 신성한 영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할 것을 가결했다. 세례에 대한 연설에서 그들이 회개를 포함해야 할지 아닌지는 선택의 여지로 남겨두었다; 그 집단을 제한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도들은 설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예수의 사도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조화-협동시키고, 의견의 차이들을 안정시키고, 집단적인 일들을 조직하고, 외부적인 일들에 관한 법을 결정하고, 개인적인 종교적 실천을 사회화시키려는 첫 번째 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많은 다른 사소한 일들이 거론되었고 그것들의 해결책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되었다. 이들 24명의 사람들은 예수도 없이, 그들이 문제점들과 마주하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만 했던 이러한 두 주일 동안에 진정으로 훌륭한 체험을 하였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것, 토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협상하는 것을 배웠고, 그 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정적이었고,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의 정직한 의견들에 대해 관용도 베풀었다.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마지막 토의를 하던 어느 날 오후에 예수가 돌아왔다. 그가 그들의 토론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주의 깊게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것들이 이제 너희의 결론들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각자에게 너희의 연합 결정이라는 정신이 끝까지 이행되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때로부터 두 달 반 후에, 요한이 처형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내내 요한의 사도들은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그들 모두는 데카폴리스의 도시들에서 이 수고의 계절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였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

144:6.7 (1625.4) But the most serious of all their problems was the question of baptism. Their difficulties were all the more aggravated because Jesus had refused to make any pronouncement upon the subject. They finally agreed: As long as John lived, or until they might jointly modify this decision, only the apostles of John would baptize believers, and only the apostles of Jesus would finally instruct the new disciples. Accordingly, from that time until after the death of John, two of the apostles of John accompanied Jesus and his apostles to baptize believers, for the joint council had unanimously voted that baptism was to become the initial step in the outward alliance with the affairs of the kingdom.

144:6.8 (1625.5) It was next agreed, in case of the death of John, that the apostles of John would present themselves to Jesus and become subject to his direction, and that they would baptize no more unless authorized by Jesus or his apostles.

144:6.9 (1625.6) And then was it voted that, in case of John's death, the apostles of Jesus would begin to baptize with water as the emblem of the baptism of the divine Spirit. As to whether or not *repentance* should be attached to the preaching of baptism was left optional; no decision was made binding upon the group. John's apostles preached, "Repent and be baptized." Jesus' apostles proclaimed, "Believe and be baptized."

144:6.10 (1625.7) And this is the story of the first attempt of Jesus' followers to co-ordinate divergent efforts, compose differences of opinion, organize group undertakings, legislate on outward observances, and socialize personal religious practices.

144:6.11 (1625.8) Many other minor matters were considered and their solutions unanimously agreed upon. These twenty-four men had a truly remarkable experience these two weeks when they were compelled to face problems and compose difficulties without Jesus. They learned to differ, to debate, to contend, to pray, and to compromise, and throughout it all to remain sympathetic with the other person's viewpoint and to maintain at least some degree of tolerance for his honest opinions.

144:6.12 (1625.9) On the afternoon of their final discussion of financial questions, Jesus returned, heard of their deliberations, listened to their decisions, and said: "These, then, are your conclusions, and I shall help you each to carry out the spirit of your united decisions."

144:6.13 (1626.1) Two months and a half from this time John was executed, and throughout this period the apostles of John remained with Jesus and the twelve. They all worked together and baptized believers during this season of labor in the cities of

다. 길보아 야영지는 서기 27년 11월 2일에 해체되었다.

the Decapolis. The Gilboa camp was broken up on November 2, A.D. 27.

제 7 장. 데카폴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7. IN THE DECAPOLIS CITIES

11월과 12월 내내, 예수와 24명은 데카폴리스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에서 조용하게 일하였는데, 주로 스키토폴리스, 게라사, 아빌라, 가다라 등지에서 일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요한의 일과 조직을 넘겨받는 예비 과정의 마지막 기간이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사회적인 종교는, 구원을 모색하는 기존(既存) 종교의 확립되어 있는 형식들 그리고 관례들과 타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한다. 세례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 사회화(社會化)한 종교적 집단으로서의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했던 값이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치는 데 있어서, 물세례를 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144:7.1 (1626.2) Throughout the months of November and December, Jesus and the twenty-four worked quietly in the Greek cities of the Decapolis, chiefly in Scythopolis, Gerasa, Abila, and Gadara. This was really the end of that preliminary period of taking over John's work and organization. Always does the socialized religion of a new revelation pay the price of compromise with the established forms and usages of the preceding religion which it seeks to salvage. Baptism was the price which the followers of Jesus paid in order to carry with them, as a socialized religious group, the followers of John the Baptist. John's followers, in joining Jesus' followers, gave up just about everything except water baptism.

예수는 데카폴리스의 도시에서는 거의 대중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는 24명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였으며, 요한의 12사도들과는 여러 차례의 특별 수업들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왜 예수가 감옥에 있는 요한을 방문하러 가지 않았으며, 왜 그가 그의 석방을 보장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좀 더 납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가 결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성한 권한에 대한 외형적인 표적을 일으키기를 거절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길보아 야영지로 오기 전에는 주로 요한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으나, 그 뒤에는 곧 직접적인 주(主)와의 접촉과 그의 가르침의 결과로 인해 믿기 시작하였다.

144:7.2 (1626.3) Jesus did little public teaching on this mission to the cities of the Decapolis. He spent considerable time teaching the twenty-four and had many special sessions with John's twelve apostles. In time they became more understanding as to why Jesus did not go to visit John in prison, and why he made no effort to secure his release. But they never could understand why Jesus did no marvelous works, why he refused to produce outward signs of his divine authority. Before coming to the Gilboa camp, they had believed in Jesus mostly because of John's testimony, but soon they were beginning to believe as a result of their own contact with the Master and his teachings.

이러한 두 달 기간 동안, 그 집단은 대부분 짝을 지어 일하였는데, 예수의 사도 한 사람과 요한의 사도 한 사람이 함께 일하였다. 요한의 사도가 세례를 주었고, 예수의 사도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납득하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유대교를 버린 이들 중에서 많은 혼들을 구원시켰다.

144:7.3 (1626.4) For these two months the group worked most of the time in pairs, one of Jesus' apostles going out with one of John's. The apostle of John baptized, the apostle of Jesus instructed, while they both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y understood it. And they won many souls among these gentiles and apostate Jews.

요한의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너는 예수를 충심으로 믿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주(主)가 그 복음을 가르치도록 임무를 맡긴 70명 선생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144:7.4 (1626.5) Abner, the chief of John's apostles, became a devout believer in Jesus and was later on made the head of a group of seventy teachers whom the Master commissioned to preach the gospel.

제 8 장. 펠라 근처에 있는 야영지에서

8. IN CAMP NEAR PELLA

12월 후반기에, 그들 모두는 펠라에서 가까운 요단강 근처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복음을 들으러 이 야영지로 찾아 왔다. 예수가 어느 날 오후에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요한의 절친한 친구들이 요한으로부터의 마지막 전갈

144:8.1 (1626.6) The latter part of December they all went over near the Jordan, close by Pella, where they again began to teach and preach. Both Jews and gentiles came to this camp to hear the gospel. It was while Jesus was teaching the multitude one afternoon that some of John's special friends

을 주(主)께 전하러 왔다.

요한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으며, 대부분의 이 기간 동안, 예수는 매우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요한이 왕국 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였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요한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켰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다음과 같이 물으라고 했습니다.—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가 요한의 친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가 잊힌 것이 아니라고 전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는 요한의 메신저들에게 말씀을 덧붙이신 후에, 다시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요한이 왕국 복음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단지, 내 제자이기도 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물은 것뿐이다. 요한은 약한 자가 아니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에게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감정이 변덕스럽고 부드러운 천의 옷을 입은 사람이냐? 대체로 화려한 복장을 입은 사람과 우아하게 살고 있는 이들은 왕궁이나 부자의 집안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았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이다. 요한에 대해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고 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는 하늘의 왕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것은 그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날 예수의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왕국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 요한의 사도들은 그 날 이후로 예수와 단단하게 연합되었다. 이 발생 사건이 요한과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실제 화합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 메신저들은 아브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 마케루스로 떠났다. 요한은 크게 위안을 받았으며, 그의 신앙은 예수의 말과 아브너로부터의 소식으로 인하여 강화되었다.

이 날 오후에 예수는 가르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가 나의 가르침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아서 그들이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통곡을 하여도 너희는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 중의 일부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brought the Master the last message which he ever had from the Baptist.

144:8.2 (1626.7) John had now been in prison a year and a half, and most of this time Jesus had labored very quietly; so it was not strange that John should be led to wonder about the kingdom. John's friends interrupted Jesus' teaching to say to him: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ask — are you truly the Deliverer,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144:8.3 (1626.8) Jesus paused to say to John's friends: “Go back and tell John that he is not forgotten. Tell him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at the poor have good tidings preached to them.” And when Jesus had spoken further to the messengers of John, he turned again to the multitude and said: “Do not think that John doubts the gospel of the kingdom. He makes inquiry only to assure his disciples who are also my disciples. John is no weakling. Let me ask you who heard John preach before Herod put him in prison: What did you behold in John — a reed shaken with the wind? A man of changeable moods and clothed in soft raiment? As a rule they who are gorgeously appareled and who live delicately are in kings' courts and in the mansions of the rich. But what did you see when you beheld John? A prophet? Yes, I say to you, and much more than a prophet. Of John it wa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you.’

144:8.4 (1627.1) “Verily, verily,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arisen a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yet he who is but small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because he has been born of the spirit and knows that he has become a son of God.”

144:8.5 (1627.2) Many who heard Jesus that day submitted themselves to John's baptism, thereby publicly professing entrance into the kingdom. And the apostles of John were firmly knit to Jesus from that day forward. This occurrence marked the real union of John's and Jesus' followers.

144:8.6 (1627.3) After the messengers had conversed with Abner, they departed for Machaerus to tell all this to John. He was greatly comforted, and his faith was strengthened by the words of Jesus and the message of Abner.

144:8.7 (1627.4) On this afternoon Jesus continued to teach, saying: “But to what shall I liken this generation? Many of you will receive neither John's message nor my teaching. You are like the children playing in the market place who call to their fellows and say: ‘We piped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wailed and you did not mourn.’ And so with some of you.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id he had a devil.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자 저희는 그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똑같은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지혜는 그 때의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정당화되는 법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진리들을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잘 주관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우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을 위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느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The Son of Man comes eating and drinking, and these same people say: 'Behold, a gluttonous man and a winebibber,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Truly,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

144:8.8 (1627.5) “It would appear that the Father in heaven has hidden some of these truths from the wise and haughty, while he has revealed them to babes. But the Father does all things well; the Father reveals himself to the universe by the methods of his own choosing. Come, therefor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you shall find rest for your souls. Take upon you the divine yoke, and you will experience the peace of God,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제 9 장. 세례자 요한의 죽음

세례자 요한은 서기 28년 1월 10일 밤에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다음 날 요한의 제자 몇 명이 그의 처형 소식을 듣고 마케루스로 가서 그의 시체를 찾아 묻었으며, 나중에는 다시 아브너의 고향인 세바스티에 묻었다.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에, 그들은 펠라 근처에 있던 요한과 예수의 사도들의 야영지로 가서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 전하였다. 예수는 그들의 보고를 받아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24명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씀하였다: “요한이 죽었다. 헤롯이 그의 목을 베었다. 오늘 밤 공동 협의회를 갖고 그에 따른 너희의 관련사들을 준비하여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왕국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선포할 때가 왔다. 우리는 내일 갈릴리로 떠날 것이다.”

따라서, 서기 28년 1월 13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25명쯤 되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그들의 길을 떠났으며, 세베대의 집에서 그날 밤 숙박하였다.

9. DEATH OF JOHN THE BAPTIST

144:9.1 (1627.6) John the Baptist was executed by order of Herod Antipas on the evening of January 10, A.D. 28. The next day a few of John's disciples who had gone to Machaerus heard of his execution and, going to Herod, made request for his body, which they put in a tomb, later giving it burial at Sebaste, the home of Abner. The following day, January 12, they started north to the camp of John's and Jesus' apostles near Pella, and they told Jesus about the death of John. When Jesus heard their report, he dismissed the multitude and, calling the twenty-four together, said: "John is dead. Herod has beheaded him. Tonight go into joint council and arrange your affairs accordingly. There shall be delay no longer. The hour has come to proclaim the kingdom openly and with power. Tomorrow we go into Galilee."

144:9.2 (1627.7) Accordingly, early on the morning of January 13, A.D. 28, Jesus and the apostles, accompanied by some twenty-five disciples, made their way to Capernaum and lodged that night in Zebedee's house.

제 145 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많은 4일간

⇨ 144

유랜시아 책

14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5 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많은 4
일간

섹션

소개

제 1 장. 물고기를 들어올림

제 2 장. 회당에서의 오후

제 3 장. 해 질 무렵의 치료

제 4 장. 그날 밤 이후

제 5 장. 일요일 이른 아침

소개

1월 13일 화요일 밤, 예수의 사도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 평소처럼, 그들은 본부를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 세웠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자 예수는 첫 번째의 공개적인 대중 연설을 갈릴리 여정에서 시작하기로 준비하였다. 예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도시 전역을 통해 퍼졌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요셉을 만나러 나사렛으로 서둘러 떠났다.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는 최초의 대규모 대중 연설을 시작하는 여행에 대비하여 세베대의 집에서 자기 사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셨다. 그는 또한 많은 열렬한 문의자들을 개별로 또는 집단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셨다. 자신이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안드레를 통하여 주선시키셨다.

금요일 저녁 늦게 예수의 막내 동생인 룯이 남 몰래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였다. 요한 세베대를 제외한 어떤 인간존재도 이 방문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받았었다. 예수의 가족들 중에서 룯은, 그녀가 영적 의식을 시작

PAPER 145
FOUR EVENTFUL DAY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raught of Fishes

2. Afternoon at the Synagogue

3. The Healing at Sundown

4. The Evening After

5. Early Sunday Morning

INTRODUCTION

145:0.1 (1628.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in Capernaum the evening of Tuesday, January 13. As usual, they made their headquarters at the home of Zebedee in Bethsaida. Now that John the Baptist had been sent to his death, Jesus prepared to launch out in the first open a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The news that Jesus had returned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city, and early the next day, Mary the mother of Jesus hastened away, going over to Nazareth to visit her son Joseph.

145:0.2 (1628.2)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Jesus spent at the Zebedee house instructing his apostles preparatory to their first extensive public preaching tour. He also received and taught many earnest inquirers, both singly and in groups. Through Andrew, he arranged to speak in the synagogue on the coming Sabbath day.

145:0.3 (1628.3) Late on Friday evening Jesus' baby sister, Ruth, secretly paid him a visit. They spent almost an hour together in a boat anchored a short distance from the shore. No human being, save John Zebedee, ever knew of this visit, and he was admonished to tell no man. Ruth was the only member of Jesus' family who consistently and

한 초기부터 그의 중대한 사명활동, 죽음, 부활, 상승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지상 사명의 신성함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친의 아버지-오빠의 사명에 대한 초자연적 성격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 세상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막내 동생 롯은, 그의 재판, 기각, 십자가형이라는 신성 재판 내내 주요 위안이 되었다.

unwaveringly believed in the divinity of his earth mission from the times of her earliest spiritual consciousness right on down through his eventful ministry,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and she finally passed on to the worlds beyond never having doubted the supernatural character of her father-brother's mission in the flesh. Baby Ruth was the chief comfort of Jesus, as regards his earth family, throughout the trying ordeal of his trial, rejection, and crucifixion.

제 1 장. 물고기를 들어올림

1. THE DRAUGHT OF FISHES

같은 그 주간의 금요일 아침에, 예수가 물가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물 가까이까지 붐비게 되자, 그는 근처의 배에 타고 있던 어부에게 그의 구조를 청하였다. 그는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배에 서신 채로 두 시간 이상을 더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배로 사용했던 것으로써 예수가 손수 만드신 배였다. 이 특별한 날 아침에, 그 배에는 다윗 세베대와 두 명의 연관-동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간밤에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 가까이에서 막 도착했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때, 그물을 씻고 수선하는 중이었다.

145:1.1 (1628.4) On Friday morning of this same week, when Jesus was teaching by the seaside, the people crowded him so near the water's edge that he signaled to some fishermen occupying a near-by boat to come to his rescue. Entering the boat, he continued to teach the assembled multitude for more than two hours. This boat was named “Simon”; it was the former fishing vessel of Simon Peter and had been built by Jesus' own hands. On this particular morning the boat was being used by David Zebedee and two associates, who had just come in near shore from a fruitless night of fishing on the lake. They were cleaning and mending their nets when Jesus requested them to come to his assistance.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끝마치신 후에 다윗에게 말씀하였다: “네가 나를 도와주러 오느라 지체했으므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한 그물 가득히 건어 올려라.” 그러나 다윗의 보좌관 중의 하나인 시몬이 말하였다: “주(主)여,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시키시니,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인 다윗이 손짓을 하였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의 지도를 따르기로 동의하였다. 그들이 예수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으며,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있던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세 척의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은 후에,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主)여, 저로부터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에피소드와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고기잡이 수확에 경탄하였다. 그 날부터 세베대 다윗, 그 시몬,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갔다.

145:1.2 (1628.5) After Jesus had finished teaching the people, he said to David: “As you were delayed by coming to my help, now let me work with you. Let us go fishing; put out into yonder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draught.” But Simon, one of David's assistants, answered: “Master, it is useless.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however, at your bidding we will put out and let down the nets.” And Simon consented to follow Jesus' directions because of a gesture made by his master, David. When they had proceeded to the place designated by Jesus, they let down their nets and enclosed such a multitude of fish that they feared the nets would break, so much so that they signaled to their associates on the shore to come to their assistance. When they had filled all three boats with fish, almost to sinking, this Simon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Master, for I am a sinful man.” Simon and all who were concerned in this episode were amazed at the draught of fishes. From that day David Zebedee, this Simon, and their associates forsook their nets and followed Jesus.

그러나 이 때 잡은 고기는 어떤 면에서도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원래 자연을 세심히 관찰하는 사람인데다가 체험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의 생태를 잘 알고 계셨다. 이 경우에는, 그가 단지 고기들이 흔히 그 시간에 잘 잡히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145:1.3 (1629.1) But this was in no sense a miraculous draught of fishes. Jesus was a close student of nature; he was an experienced fisherman and knew the habits of the fish in the Sea of Galilee. On this occasion he merely directed these men to the place where the fish were usually to be found at this time of day. But Jesus' followers always regarded this as a

miracle.

제 2 장. 회당에서의 오후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오후 봉사 예배 중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왕국”에 대해 설교하였다. 회당에서 있었던 목요일 밤 회합에서는 안드레가 가르쳤는데, 그의 주제는 “새로운 길”이었다. 이 특정한 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한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관습에 따라 율법서로부터 첫 번째 본문(本文)을 택하였고, 출애굽기에서 읽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로부터 모든 병을 제하실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본문을 예언서들로부터 택하고, 이사야서로부터 읽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주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민족을 가리겠지만, 주님의 영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신성한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방인들까지도 이 빛으로 나아오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빛의 광명 아래에 굴복할 것이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는 종교가 하나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다른 말들 중에서도, 주(主)가 다음의 말씀을 하였다:

“인정 많은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사랑하지만, 그가 이렇게 그들을 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각 개별존재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잘 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집단으로 볼 때, 너희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지만, 개별존재로서의 너희 각자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존재인 믿는 자에게 순수한 개인적 체험이 되도록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사랑 그리고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주기 위해서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안에 좀 더 큰 진리, 많은 후세의 선지자들 역시 파악했던, 하느님께서 너희—너희 각자—를 개별존재로서 사랑한다는 것이다. 너희 이 모든 세대들은 민족의 혹은 종족 차원의 종교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내가 개인적 종교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관념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일부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2. AFTERNOON AT THE SYNAGOGUE

145:2.1 (1629.2) The next Sabbath, at the afternoon service in the synagogue, Jesus preached his sermon on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In the morning Simon Peter had preached on “The Kingdom.” At the Thursday evening meeting of the synagogue Andrew had taught, his subject being “The New Way.” At this particular time more people believed in Jesus in Capernaum than in any other one city on earth.

145:2.2 (1629.3) As Jesus taught in the synagogue this Sabbath afternoon, according to custom he took the first text from the law,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And you shall serve the Lord, your God, and he shall bless your bread and your water, and all sickness shall be taken away from you.” He chose the second text from the Prophets, reading from Isaiah: “Arise and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Darkness may cover the earth and gross darkness the people, but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arise upon you, and the divine glory shall be seen with you. Even the gentiles shall come to this light, and many great minds shall surrender to the brightness of this light.”

145:2.3 (1629.4) This sermon was an effort on Jesus' part to make clear the fact that religion is a *personal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the Master said:

145:2.4 (1629.5) “You well know that, while a kindhearted father loves his family as a whole, he so regards them as a group because of his strong affection for each individual member of that family. No longer must you approach the Father in heaven as a child of Israel but as a child of God. As a group, you are indeed the children of Israel, but as individuals, each one of you is a child of God. I have come, not to reveal the Father to the children of Israel, but rather to bring this knowledge of God and the revelation of his love and mercy to the individual believer as a genuine personal experience. The prophets have all taught you that Yahweh cares for his people, that God loves Israel. But I have come among you to proclaim a greater truth, one which many of the later prophets also grasped, that God loves you — every one of you — as individuals. All these generations have you had a national or racial religion; now have I come to give you a personal religion.

145:2.5 (1630.1) “But even this is not a new idea. Many of the spiritually minded among you have known this truth, inasmuch as some of the prophets have so instructed you. Have you not read in the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음의 말을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 때에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자신의 사악한 불의로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으니, 신 포도를 먹는 사람은 이가 시릴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올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날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네가 주님을 아느냐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제일 큰 자까지 다 나를 개인적으로 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러한 약속들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가슴에서의 관련사로 만들라고, 너희 자신을 하느님에게 개별존재로서 관련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각자의 본심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본성적 인간의 본심은 무엇보다도 남을 잘 속이고, 종종 절망적으로 악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고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또한 에스겔이, 종교는 너희의 개별적 체험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 조상들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음과 같은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아 있으므로 모든 혼들이 다 내 것임을 보라; 아비의 혼이 그러하듯, 아들의 혼도 마찬가지이다. 범죄 하는 그 혼들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오늘날까지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본심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다.

“너희는 하느님이 한 개별존재의 죄로 인하여 민족을 벌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 말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이 깊은 자기 자녀들을 민족의 죄로 인하여 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허지만 모든 가정의 가족 개개인들은 가족의 오류나 집단적 죄의 물질적인 결과로 흔히 고통을 당하여만 한다. 좀 더 나은 국가—혹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별존재의 향상과 깨우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主)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이러한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파라다이스로의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였으며, 이 상승의 길은 창조자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알고 그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내주 하는 영의 신성한 충동에 대한 창조체의 의식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도들은 이 설교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

Scriptures where the Prophet Jeremiah says: ‘In those days they shall no more say,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Every man shall die for his own iniquity; every man who eats sour grapes, his teeth shall be set on edge. Behold, the days shall come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my people,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which I made with their fathe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but according to the new way. I will even write my law i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In that day they shall not say, one man to his neighbor, do you know the Lord? Nay! For they shall all know me personally,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145:2.6 (1630.2) “Have you not read these promises? Do you not believe the Scriptures? Do you not understand that the prophet’s words are fulfilled in what you behold this very day? And did not Jeremiah exhort you to make religion an affair of the heart, to relate yourselves to God as individuals? Did not the prophet tell you that the God of heaven would search your individual hearts? And were you not warned that the natural human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oftentimes desperately wicked?

145:2.7 (1630.3) “Have you not read also where Ezekiel taught even your fathers that religion must become a reality in your individual experiences? No more shall you use the proverb which says,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As I live,’ says the Lord God, ‘behold all souls are mine; as the soul of the father, so also the soul of the son. Only the soul that sins shall die.’ And then Ezekiel foresaw even this day when he spoke in behalf of God, saying: ‘A new heart also will I give you, and a new spirit will I put within you.’

145:2.8 (1630.4) “No more should you fear that God will punish a nation for the sin of an individual; neither will the Father in heaven punish one of his believing children for the sins of a nation, albeit the individual member of any family must often suffer the material consequences of family mistakes and group transgressions. Do you not realize that the hope of a better nation — or a better world — is bound up in the progress and enlightenment of the individual?”

145:2.9 (1630.5) Then the Master portrayed that the Father in heaven, after man discerns this spiritual freedom, wills that his children on earth should begin that eternal ascent of the Paradise career which consists in the creature’s conscious response to the divine urge of the indwelling spirit to find the Creator, to know God and to seek to become like him.

145:2.10 (1630.6) The apostles were greatly helped by

모두는, 왕국 복음이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별존재에게 향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좀 더 잘 깨닫게 되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식일 날의 설교에 대해서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권한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가 말씀을 막 끝마치셨을 때,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젊은이가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동요되어 격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내며 큰소리로 외쳤다. 경련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면서, 그는 꿈을 꾸는 상태로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그 속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였다—그리고 그는 즉시 깨어났다.

이 젊은이는 더러운 영이나 악마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배워왔었다.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믿었으며, 그것에 따라 자기 병에 관해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현상은 더러운 영의 현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그의 간질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해가 진 후 그날 늦게까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되지 않았었다.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소위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참조사항을 삭제시켰는데, 그러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오순절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이 평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가 회당에서의 오후 설교를 마치시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그를 기적적으로 고치셨다는 보고가 가버나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한 놀라운 소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퍼져 나가게 하는 데에는 안식일이 가장 좋은 때였다. 이러한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주위의 모든 작은 마을에도 전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

예수와 12 사도들이 그들의 본부로 삼았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과 집안일은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거의 모든 일을 맡아보았다. 베드로의 집이 세베대의 집과 가까웠으며; 예수와 그의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들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며칠 동안이나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수가 이 아픈 여인을 굴아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위로와 용기의 말을 몇 마디 하엿을 즈음해서, 우연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일은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

this sermon. All of them realized more fully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a message directed to the individual, not to the nation.

145:2.11 (1630.7) Even though the people of Capernaum were familiar with Jesus' teaching, they were astonished at his sermon on this Sabbath day. He taught, indeed,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145:2.12 (1630.8) Just as Jesus finished speaking, a young man in the congregation who had been much agitated by his words was seized with a violent epileptic attack and loudly cried out. At the end of the seizure, when recovering consciousness, he spoke in a dreamy state, saying: "What have we to do with you, Jesus of Nazareth? You are the holy one of God; have you come to destroy us?" Jesus bade the people be quiet and, taking the young man by the hand, said, "Come out of it" — and he was immediately awakened.

145:2.13 (1631.1) This young man was not possessed of an unclean spirit or demon; he was a victim of ordinary epilepsy. But he had been taught that his affliction was due to possession by an evil spirit. He believed this teaching and behaved accordingly in all that he thought or said concerning his ailment. The people all believed that such phenomena were directly caused by the presence of unclean spirits. Accordingly they believed that Jesus had cast a demon out of this man. But Jesus did not at that time cure his epilepsy. Not until later on that day, after sundown, was this man really healed. Long after the day of Pentecost the Apostle John, who was the last to write of Jesus' doings, avoided all reference to these so-called acts of "casting out devils," and this he did in view of the fact that such cases of demon possession never occurred after Pentecost.

145:2.14 (1631.2) As a result of this commonplace incident the report was rapidly spread through Capernaum that Jesus had cast a demon out of a man and miraculously healed him in the synagogue at the conclusion of his afternoon sermon. The Sabbath was just the time for the rapid and effective spreading of such a startling rumor. This report was also carried to all the smaller settlements around Capernaum,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it.

145:2.15 (1631.3) The cooking and the housework at the large Zebedee home, where Jesus and the twelve made their headquarters, was for the most part done by Simon Peter's wife and her mother. Peter's home was near that of Zebedee; and Jesus and his friends stopped there on the way from the synagogue because Peter's wife's mother had for several days been sick with chills and fever. Now it chanced that, at about the time Jesus stood over this sick woman, holding her hand, smoothing her brow, and speaking words of

니었다는 설명을 자기 사도들에게 아직 하지 못하였다; 그 사건이 그렇게 신선하고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있는데다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회상되어, 그들은 이 우연한 사건을 또 다른 하나의 기적으로 여겼고, 그들 중 몇몇은 제빵리 밖으로 나가 도시 전역을 통해 이 소식을 퍼뜨렸다.

베드로의 장모인 아마타는 학질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예수에 의해서 기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진 후 몇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그녀의 회복이 세베대의 집 정원 앞에서 발생한 비상한 사건으로 관련되어서 퍼져 나가지는 않았다.

이적을 구하는 세대와 기적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이 예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선전하기 위해 그러한 우연한 경우들을 빼지 않고 구실로 삼았었는데, 이런 일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제 3 장. 해 질 무렵의 치료

이 사건 많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저녁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모든 가버나움과 그 주위에서는 이러한 치료(治療)의 기적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병들거나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해가 지자마자 예수께 가거나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서 갈 준비를 시작하였다. 유대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성(神性)한 안식일 동안에는 병을 고치러 찾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가 지평선(地平線)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많은 고통 받는 남녀와 아이들이 벧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은 해가 자기 이웃 집 뒤편으로 넘어가자마자, 몸이 마비된 딸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그 날 전체의 사건들이, 이 비상한 해질 무렵의 장면을 연출할 무대를 준비한 것이었다. 예수가 오후 설교에서 인용했던 본문까지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가깝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것처럼 전례가 없었던 힘과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하였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박력이 넘쳤던가! 그가 인간 설득력에는 아무런 호소를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식과 혼에 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가 논리적, 법적 논쟁, 영리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박력 있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개인적 호소력은 듣는 이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그 안식일은 예수의 지상(地上) 일생에서, 우주의 일생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모든 지역우주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이 작은 유대 도시인 가버나움이 실제적인 네바돈의 수도였다. “증오는 두

comfort and encouragement, the fever left her. Jesus had not yet had time to explain to his apostles that no miracle had been wrought at the synagogue; and with this incident so fresh and vivid in their minds, and recalling the water and the wine at Cana, they seized upon this coincidence as another miracle, and some of them rushed out to spread the news abroad throughout the city.

145:2.16 (1631.4) Amatha, Peter's mother-in-law, was suffering from malarial fever. She was not miraculously healed by Jesus at this time. Not until several hours later, after sundown, was her cure effected in connection with the extraordinary event which occurred in the front yard of the Zebedee home.

145:2.17 (1631.5) And these cases are typical of the manner in which a wonder-seeking generation and a miracle-minded people unfailingly seized upon all such coincidences as the pretext for proclaiming that another miracle had been wrought by Jesus.

3. THE HEALING AT SUNDOWN

145:3.1 (1631.6) By the time Jesus and his apostles had made ready to partake of their evening meal near the end of this eventful Sabbath day, all Capernaum and its environs were agog over these reputed miracles of healing; and all who were sick or afflicted began preparations to go to Jesus or to have themselves carried there by their friends just as soon as the sun went down. According to Jewish teaching it was not permissible even to go in quest of health during the sacred hours of the Sabbath.

145:3.2 (1632.1) Therefore, as soon as the sun sank beneath the horizon, scores of afflicted men, women, and children began to make their way toward the Zebedee home in Bethsaida. One man started out with his paralyzed daughter just as soon as the sun sank behind his neighbor's house.

145:3.3 (1632.2) The whole day's events had set the stage for this extraordinary sundown scene. Even the text Jesus had used for his afternoon sermon had intimated that sickness should be banished; and he had spoken with such unprecedented power and authority! His message was so compelling! While he made no appeal to human authority, he did speak directly to the consciences and souls of men. Though he did not resort to logic, legal quibbles, or clever sayings, he did make a powerful, direct, clear, and personal appeal to the hearts of his hearers.

145:3.4 (1632.3) That Sabbath was a great day in the earth life of Jesus, yes, in the life of a universe. To all local universe intents and purposes the little Jewish city of Capernaum was the real capital of

려움의 그림자이다; 복수는 비겁함의 가면이다.”라고 하였던 예수의 설교의 감격적인 결론을 듣고 있던 자들은 단지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소수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청중들은 “사람은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의 축복의 말도 잊을 수 없었다.

해가 진 직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을 때, 베드로의 아내는 앞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큰 무리를 이루어 모여 있는 병자들을 보았으며, 가버나움으로부터 오는 길이 예수께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 자들로 붐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녀가 바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알렸고,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께 알렸다.

주(主)가 세베대의 집 정문으로 나가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병들어 있고 시달리고 있는 인간성의 대열과 마주쳤다. 그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인간 존재들을 바라보셨는데; 적어도 그것이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숫자였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이가 고통 받는 자들은 아니었고; 그 중에는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고자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자신이 신임하는 우주 관리-행정의 아들들의 오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러한 필사자 남녀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가슴에 특별히 와 닿았으며, 이 자애로운 창조자 아들이 가진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순전히 물질적인 이적의 기초 위에 영속하는 영적 운동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다. 자신의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의 사건 이후에,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이 그의 가르침에 수반되지 않았었다; 그래도 이 고통 받는 무리들은 그의 동정심 가득한 가슴을 움직였고 그의 납득하는 애정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主)여,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육신화된 한 우주의 창조자를 항상 함께 동행하던 세라핌천사, 물리통제자, 생명운반자, 중도자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수행원들은 그들의 주권자의 신호가 내려지게 되면 창조적 능력을 행사하려고 자신들을 그렇게 준비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일생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 연민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서 너무나 서로 얽혀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호소하면서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던 그러한 순간들 중의 하나였다.

베드로가 주(主)에게 그들의 도움을 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고통 받는 군중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

Nebadon. The handful of Jews in the Capernaum synagogue were not the only beings to hear that momentous closing statement of Jesus' sermon: "Hate is the shadow of fear; revenge the mask of cowardice." Neither could his hearers forget his blessed words, declaring, "Man is the son of God, not a child of the devil."

145:3.5 (1632.4) Soon after the setting of the sun, as Jesus and the apostles still lingered about the supper table, Peter's wife heard voices in the front yard and, on going to the door, saw a large company of sick folks assembling, and that the road from Capernaum was crowded by those who were on their way to seek healing at Jesus' hands. On seeing this sight, she went at once and informed her husband, who told Jesus.

145:3.6 (1632.5) When the Master stepped out of the front entrance of Zebedee's house, his eyes met an array of stricken and afflicted humanity. He gazed upon almost one thousand sick and ailing human beings; at least that was the number of persons gathered together before him. Not all present were afflicted; some had come assisting their loved ones in this effort to secure healing.

145:3.7 (1632.6) The sight of these afflicted mortals, men, women, and children, suffering in large measure as a result of the mistakes and misdeeds of his own trusted Sons of universe administration, peculiarly touched the human heart of Jesus and challenged the divine mercy of this benevolent Creator Son. But Jesus well knew he could never build an enduring spiritual movement upon the foundation of purely material wonders. It had been his consistent policy to refrain from exhibiting his creator prerogatives. Not since Cana had the supernatural or miraculous attended his teaching; still, this afflicted multitude touched his sympathetic heart and mightily appealed to his understanding affection.

145:3.8 (1632.7) A voice from the front yard exclaimed: "Master, speak the word, restore our health, heal our diseases, and save our souls." No sooner had these words been uttered than a vast retinue of seraphim, physical controllers, Life Carriers, and midwayers, such as always attended this incarnated Creator of a universe, made themselves ready to act with creative power should their Sovereign give the signal. This was one of those moments in the earth career of Jesus in which divine wisdom and human compassion were so interlocked in the judgment of the Son of Man that he sought refuge in appeal to his Father's will.

145:3.9 (1632.8) When Peter implored the Master to heed their cry for help, Jesus, looking down upon the afflicted throng, answered: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reveal the Father and establish his kingdom. For this purpose have I lived my life to

리므로 만약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며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나의 봉헌에 거역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그리고—” 그러나 예수와 그 다음의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예수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자기 아버지의 관정에 맡겼다. 아버지의 뜻으로부터는 명백하게 아무런 반대도 없었으며, 주(主)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생각 조절자의 명령 아래에서 일하는 천상의 개인성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고통 받는 필사자들의 복잡한 군중 속으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다른 물질적인 불편함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러한 광경은 이 세상에서는 그 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가 없었으며, 그 후로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 창조적인 치료의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들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전율이 넘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치료 때문에 놀랐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 관심과 동정심이 그의 앞에 펼쳐있는 고통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과 특정한 환경들 아래에서는 창조자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시간적 요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경고를 자신의 인간 마음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고통 받는 필사자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싶었다.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그 당시의 그러한 창조 에너지의 행위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하였으며, 그래서 그러한 결정으로—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예수의 표현—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자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였다. 예수의 나머지 지상 일생에서 그러한 단체적인 육신의 치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대했던 대로, 가버나움의 벳세다에서 일어난 해질 무렵의 치료의 명성이 갈릴리와 유다 전역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역으로까지 퍼졌다. 다시 한 번 해룻이 두려워하게 되어, 예수의 일과 가르침에 대한 보고와 그가 과연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지 아니면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시자를 파견하였다.

의도하지 않았던 육신의 병을 고친 실증이 주요 원인이 되어, 그 이후의 남아있는 지상 일생을 통하여 예수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그가 가르침을 계속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개인적 일은 병들과

this hour. If, therefore, it should be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not inconsistent with my dedication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I would desire to see my children made whole — and — “ but the further words of Jesus were lost in the tumult.

145:3.10 (1633.1) Jesus had passed the responsibility of this healing decision to the ruling of his Father. Evidently the Father's will interposed no objection, for the words of the Master had scarcely been uttered when the assembly of celestial personalities serving under the command of Jesus' Personalized Thought Adjuster was mightily astir. The vast retinue descended into the midst of this motley throng of afflicted mortals, and in a moment of time 683 men, women, and children were made whole, were perfectly healed of all their physical diseases and other material disorders. Such a scene was never witnessed on earth before that day, nor since. And for those of us who were present to behold this creative wave of healing, it was indeed a thrilling spectacle.

145:3.11 (1633.2) But of all the beings who were astonished at this sudden and unexpected outbreak of supernatural healing, Jesus was the most surprised. In a moment when his human interests and sympathies were focused upon the scene of suffering and affliction there spread out before him, he neglected to bear in his human mind the admonitory warnings of his Personalized Adjuster regarding the impossibility of limiting the time element of the creator prerogatives of a Creator Son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Jesus desired to see these suffering mortals made whole if his Father's will would not thereby be violated.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instantly ruled that such an act of creative energy at that time would not transgress the will of the Paradise Father, and by such a decision — in view of Jesus' preceding expression of healing desire — the creative act was. What a *Creator Son* desires and his Father *wills* IS. Not in all of Jesus' subsequent earth life did another such en masse physical healing of mortals take place.

145:3.12 (1633.3) As might have been expected, the fame of this sundown healing at Bethsaida in Capernaum spread throughout all Galilee and Judea and to the regions beyond. Once more were the fears of Herod aroused, and he sent watchers to report on the work and teachings of Jesus and to ascertain if he was the former carpenter of Nazareth or John the Baptist risen from the dead.

145:3.13 (1633.4) Chiefly because of this unintended demonstration of physical healing, henceforth,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Jesus became as much a physician as a preacher. True, he continued his teaching, but his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그의 사도들이 대중을 위한 설교와 신도들에 대한 세례를 맡았었다.

그러나 이 날 해질 무렵의 신성한 에너지가 실제 실증되었을 때, 초자연적으로 혹은 창조적으로 육체적 치료를 받은 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범한 자비의 현시활동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영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으로 이 육체적 사명활동에 의하여 교화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무시된 놀라운 창조적 치료의 돌발적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 향상되지는 않았다.

치유의 이적이 예수의 지상 임무 중에서 수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왕국 선포에 있어서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거의 무제한적인 창조 특권을 가지신 신성한 존재가 이 세상에 거주하심으로써 전례에 없었던 신성한 자비와 인간 동정심의 관계적-연합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편견을-일으키는 홍보를 제공했고 또한 바라지 않던 나쁜 평판도 잘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린 그것들은 예수께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제 4 장. 그날 밤 이후

이 굉장한 병을 고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내내, 기쁨에 차고 행복한 군중들이 세베대의 집을 가득 채웠고, 예수의 사도들은 감정적인 열광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다.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예수와 관계적-연합한 모든 중요한 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 그들의 희망이 그렇게 자신감에 찬 기대감으로 물결친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들이 아직 사마리아의 경계 안에 있을 때인 바로 며칠 전에, 예수가 왕국이 힘을 가지고 선포되어질 그 때가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놀라운 치유하는 힘의 현시활동이 바로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면,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대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율하였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꾸물거렸던 의심이 떨쳐지게 되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황홀감의 절정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主)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매우 당황하였다. 각양각색의 병에서 완쾌함을 받은 이 남녀들과 아이들은 예수께 감사를 표하려고 밤늦게까지 서성이며 그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사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主)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시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전하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병을 고치는 에피소드에서의 수혜자들은 실

personal work consisted mostly in ministering to the sick and the distressed, while his apostles did the work of public preaching and baptizing believers.

145:3.14 (1633.5) But the majority of those who were recipients of supernatural or creative physical healing at this sundown demonstration of divine energy were not permanently spiritually benefited by this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mercy. A small number were truly edified by this physical ministry, but the spiritual kingdom was not advanced in the hearts of men by this amazing eruption of timeless creative healing.

145:3.15 (1633.6) The healing wonders which every now and then attended Jesus' mission on earth were not a part of his plan of proclaiming the kingdom. They were incidentally inherent in having on earth a divine being of well-nigh unlimited creator prerogatives in association with an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divine mercy and human sympathy. But such so-called miracles gave Jesus much trouble in that they provided prejudice-raising publicity and afforded much unsought notoriety.

4. THE EVENING AFTER

145:4.1 (1634.1) Throughout the evening following this great outburst of healing, the rejoicing and happy throng overran Zebedee's home, and the apostles of Jesus were keyed up to the highest pitch of emotional enthusiasm. From a human standpoint, this was probably the greatest day of all the great days of their association with Jesus. At no time before or after did their hopes surge to such heights of confident expectation. Jesus had told them only a few days before, and when they were yet within the borders of Samaria, that the hour had come when the kingdom was to be proclaimed in *power*; and now their eyes had seen what they supposed was the fulfillment of that promise. They were thrilled by the vision of what was to come if this amazing manifestation of healing power was just the beginning. Their lingering doubts of Jesus' divinity were banished. They were literally intoxicated with the ecstasy of their bewildered enchantment.

145:4.2 (1634.2) But when they sought for Jesus, they could not find him. The Master was much perturbed by what had happened. These men,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healed of diverse diseases lingered late into the evening, hoping for Jesus' return that they might thank him. The apostles could not understand the Master's conduct as the hours passed and he remained in seclusion; their joy would have been full and perfect but for his continued absence. When Jesus did return to their midst, the hour was late,

천적으로 모두 돌아간 후였다. 예수가 그를 보리 남아 있던 다른 사람들과 12사도들의 축하와 찬미를 무시하면서 단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육신의 병을 고친 능력으로 인하여 기쁨을 향유하지 말고, 오히려 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기쁨을 향유하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을 위해 이제 모두 가서 쉬도록 하자.”

12사도들은 다시 한 번 실망하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며, 이제 가슴이-슬퍼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갔다; 쌍둥이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주(主)가 사도들의 혼을 북돋아 주시고 가슴을 기쁘게 해주기가 무섭게, 다시 곧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들의 용기와 열성의 기반을 전부 뒤엎으시는 것 같았다. 이들 어리둥절한 어부들이 각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단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는 그를 납득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하는 것이었다.

제 5 장.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도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이 육신의 고통으로 가득 차있으며,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넘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병자나 고통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적 왕국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사명은, 육체적 일에 대한 사명활동으로 방해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종속되어지는 현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그 커다란 위험을 심사숙고하였다. 그 날 밤 동안 예수의 필사자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생각들과 비슷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 훨씬 이전인 일요일 새벽에 그가 즐겨 찾아가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장소로 혼자서 가셨다. 그 날 이른 아침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필사자의 고통 받는 현존 앞에서 자기에 향하는 그러한 호소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 동정심이, 신성한 자비와 합쳐지면서, 영적인 것이 소홀해지는 육체적 사명 활동에 자신의 모든 시간들이 점령되지 않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전부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적 훈련이라는 더욱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가 언덕으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그의 개인적 현신에 적합한 독립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가 기도하러 떠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깨워 함께 주(主)를 찾아 나섰다. 한 시간 이상 찾아 헤맨 후에,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였고 그의 이상한 행위에 대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왜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쳤고 사도들이 그처럼 기쁨을 향유하는 치유의 영의 막강한 분출 때문에 그가 괴로

and practically all of the beneficiaries of the healing episode had gone to their homes. Jesus refused the congratulations and adoration of the twelve and the others who had lingered to greet him, only saying: “Rejoice not that my Father is powerful to heal the body, but rather that he is mighty to save the soul. Let us go to our rest, for tomorrow we must be about the Father’s business.”

145:4.3 (1634.3) And again did twelve disappointed, perplexed, and heart-sorrowing men go to their rest; few of them, except the twins, slept much that night. No sooner would the Master do something to cheer the souls and gladden the hearts of his apostles, than he seemed immediately to dash their hopes in pieces and utterly to demolish the foundations of their courage and enthusiasm. As these bewildered fishermen looked into each other’s eyes, there was but one thought: “We cannot understand him. What does all this mean?”

5. EARLY SUNDAY MORNING

145:5.1 (1634.4) Neither did Jesus sleep much that Saturday night. He realized that the world was filled with physical distress and overrun with material difficulties, and he contemplated the great danger of being compelled to devote so much of his time to the care of the sick and afflicted that his mission of establishing the spiritual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would be interfered with or at least subordinated to the ministry of things physical. Because of these and similar thoughts which occupied the mortal mind of Jesus during the night, he arose that Sunday morning long before daybreak and went all alone to one of his favorite places for communion with the Father. The theme of Jesus’ prayer on this early morning was for wisdom and judgment that he might not allow his human sympathy, joined with his divine mercy, to make such an appeal to him in the presence of mortal suffering that all of his time would be occupied with physical ministry to the neglect of the spiritual. Though he did not wish altogether to avoid ministering to the sick, he knew that he must also do the more important work of spiritual teaching and religious training.

145:5.2 (1635.1) Jesus went out in the hills to pray so many times because there were no private rooms suitable for his personal devotions.

145:5.3 (1635.2) Peter could not sleep that night; so, very early, shortly after Jesus had gone out to pray, he aroused James and John, and the three went to find their Master. After more than an hour’s search they found Jesus and besought him to tell them the reason for his strange conduct. They desired to know why he appeared to be troubled by the mighty outpouring of the spirit of healing when

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예수는 4시간 이상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이 3명의 사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었다. 예수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었고, 그러한 현시활동들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기도하러 온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왕국이 왜 이적-행함이나 물리적 치유 위에 세워질 수 없는지 실제 이유를 자신의 개인적 연관-동료들에게 명백하게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고통 받는 혼들의 무리들과 많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일찍 세베대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였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시몬 켈로떼가 군중들에게 말하는 동안 안드레와 몇 명의 사도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다. 안드레는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왜 우리만 홀로 무리들과 있게 내버려두십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인하여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온 자들이 지금도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러 저희와 함께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였다: “안드레야, 땅에서의 나의 사명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며, 나의 메시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너희는 내가 호기심을 충족되게 하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찾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일을 버리는 그런 나와 함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제까지 여러 달을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들으러 군중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더냐? 어째서 지금은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찾아오고 있던 말이나? 그것은 그들이 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치료 때문이 아니더냐? 비범한 현시활동들 때문에 우리에게 나올 때, 그들 대부분은 진리와 구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추구하려고 온 것이다.

“이제까지 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이러한 호기심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영적이 아닌 육체적인 일들에 사명활동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였지만, 나는 나의 가르침을 제쳐놓고 병을 고치는 일에 점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안드레야,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

all the people were overjoyed and his apostles so much rejoiced.

145:5.4 (1635.3) For more than four hours Jesus endeavored to explain to these three apostles what had happened. He taught them about what had transpired and explained the dangers of such manifestations. Jesus confided to them the reason for his coming forth to pray. He sought to make plain to his personal associates the real reasons why the kingdom of the Father could not be built upon wonder-working and physical healing. But they could not comprehend his teaching.

145:5.5 (1635.4) Meanwhile, early Sunday morning, other crowds of afflicted souls and many curiosity seekers began to gather about the house of Zebedee. They clamored to see Jesus. Andrew and the apostles were so perplexed that, while Simon Zelotes talked to the assembly, Andrew, with several of his associates, went to find Jesus. When Andrew had located Jesus in company with the three, he said: “Master, why do you leave us alone with the multitude? Behold, all men seek you; never before have so many sought after your teaching. Even now the house is surrounded by those who have come from near and far because of your mighty works. Will you not return with us to minister to them?”

145:5.6 (1635.5) When Jesus heard this, he answered: “Andrew, have I not taught you and these others that my mission on earth i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and my message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How is it, then, that you would have me turn aside from my work for the gratification of the curious and for the satisfaction of those who seek for signs and wonders? Have we not been among these people all these months, and have they flocked in multitudes to hear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hy have they now come to besiege us? Is it not because of the healing of their physical bodies rather than as a result of the reception of spiritual truth for the salvation of their souls? When men are attracted to us because of extraordinary manifestations, many of them come seeking not for truth and salvation but rather in quest of healing for their physical ailments and to secure deliverance from their material difficulties.

145:5.7 (1635.6) “All this time I have been in Capernaum, and both in the synagogue and by the seaside have I proclaim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to all who had ears to hear and hearts to receive the truth.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that I should return with you to cater to these curious ones and to become occupied with the ministry of things physical to the exclusion of the spiritual. I have ordained you to preach the gospel and minister to the sick, but I must not become engrossed in healing to the exclusion of my teaching. No, Andrew, I will not return with you. Go

던 것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들의 해방을 기쁨으로 향유하고 말하고,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로 떠날 준비를 해라. 거기에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준비가 이미 무르익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동안 나는 여기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예수가 말씀을 끝내시자, 안드레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슬픈 가슴으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가 지도한 대로, 모여 있는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신속하게 여행 준비를 끝냈다. 그렇게 해서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갈릴리 도시들에서의 그들의 실제로 최초의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설교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 첫 번 여행 중에 많은 도시들에서 왕국 복음을 전했지만, 나사렛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 일요일 오후, 예수와 사도들이 림몬으로 막 떠난 후에,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그를 만나러 세베대의 집으로 왔다. 그 날 정오경에 유다가 그의 형 야고보를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보러 가자고 청했었다. 야고보가 유다와 함께 갈 것에 동의했을 즈음에 예수는 이미 떠나신 후였다.

사도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굉장한 흥미 있는 일들을 뒤에 두고 떠나기 싫었다. 베드로는 천 명이 넘는 신자들이 왕국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았다고 계산했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들었으나, 돌아가는 것은 거절하였다. 침묵이 잠시 동안 흐른 후에, 도마가 동료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자! 주(主)의 말씀이 떨어졌다.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신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한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에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다.

and tell the people to believe in that which we have taught them and to rejoice in the liberty of the sons of God, and make ready for our departure for the other cities of Galilee, where the way has already been prepared for the preaching of the good tidings of the kingdom.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Go, then, and prepare for our immediate departure while I here await your return.”

145:5.8 (1636.1) When Jesus had spoken, Andrew and his fellow apostles sorrowfully made their way back to Zebedee's house, dismissed the assembled multitude, and quickly made ready for the journey as Jesus had directed. And so, on the afternoon of Sunday, January 18, A.D. 28, Jesus and the apostles started out upon their first really public and open preaching tour of the cities of Galilee. On this first tour they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many cities, but they did not visit Nazareth.

145:5.9 (1636.2) That Sunday afternoon, shortly after Jesus and his apostles had left for Rimmon, his brothers James and Jude came to see him, calling at Zebedee's house. About noon of that day Jude had sought out his brother James and insisted that they go to Jesus. By the time James consented to go with Jude, Jesus had already departed.

145:5.10 (1636.3) The apostles were loath to leave the great interest which had been aroused at Capernaum. Peter calculated that no less than one thousand believers could have been baptized into the kingdom. Jesus listened to them patiently, but he would not consent to return. Silence prevailed for a season, and then Thomas addressed his fellow apostles, saying: “Let's go! The Master has spoken. No matter if we cannot fully comprehend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of one thing we are certain: We follow a teacher who seeks no glory for himself.” And reluctantly they went forth to preach the good tidings in the cities of Galilee.

제 146 편 갈릴리의 첫 번째 설교 여행

⇨ 145

유랜시아 책

14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6 편 갈릴리의 첫 번째 설교 여행

섹션

소개

- 제 1 장. 림몬에서의 설교
- 제 2 장. 요타파타에서
- 제 3 장. 라마에 들리심
- 제 4 장. 아이론에서의 복음
- 제 5 장. 가나로 돌아옴
- 제 6 장. 나인과 과부의 아들
- 제 7 장. 엔도르에서

PAPER 146

FIRST PREACHING TOUR OF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 1. Preaching at Rimmon
- 2. At Jotapata
- 3. The Stop at Ramah
- 4. The Gospel at Iron
- 5. Back in Cana
- 6. Nain and the Widow's Son
- 7. At Endor

소개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은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3월 17일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것을 끝으로 약 두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여행에서 예수와 12 사도들은 이전의 요한의 사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림몬, 요타파타, 라마, 스블론, 이론, 케자리아, 코라진, 매돈, 가나, 나인, 엔도르 등지에서 복음을 설교하였으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이들 도시들에서 체재하면서 가르쳤고, 한편 많은 작은 도시들에서는 지나가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가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거리낌 없이 설교하도록 허락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단지 세 가지의 주의를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나사렛을 멀리하라는 것과 가버나움과 티베리아스를 지나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자유로이 설교할 수 있고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함을 얻었으며, 복음을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큰 열성과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였다.

INTRODUCTION

146:0.1 (1637.1) THE first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began on Sunday, January 18, A.D. 28, and continued for about two months, ending with the return to Capernaum on March 17. On this tour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assisted by the former apostles of John, preached the gospel and baptized believers in Rimmon, Jotapata, Ramah, Zebulun, Iron, Gischala, Chorazin, Madon, Cana, Nain, and Endor. In these cities they tarried and taught, while in many other smaller towns they proclaim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they passed through.

146:0.2 (1637.2) This was the first time Jesus permitted his associates to preach without restraint. On this tour he cautioned them on only three occasions; he admonished them to remain away from Nazareth and to be discreet when passing through Capernaum and Tiberias. It was a source of great satisfaction to the apostles at last to feel they were at liberty to preach and teach without restriction, and they threw themselves into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ministering to the sick, and baptizing believers, with great

earnestness and joy.

제 1 장. 림몬에서의 설교

소도시인 림몬은 한때 바빌론의 대기의 하느님인 람만을 경배하는 데에 전념했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초기 바빌론 사람과 후대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가르침들에는 여전히 림몬 자손들의 믿음들을 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와 24 명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옛날 믿음과 왕국의 새 복음에 대한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베드로가 그의 초기 생애에서 보여 주었던 그의 훌륭한 설교들 중의 하나인, “아론과 금송아지”에 대한 설교를 이곳에서 하였다.

많은 림몬 시민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그들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하나의 독자적인 생애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자연 경배자들을 영적 이상(理想)을 찬미하는 충분한 동료관계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바빌론 사람들의 좀 더 좋은 점과 페르시아인들의 많은 관념들, 밝음과 어두움, 선과 악, 시간과 영원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소위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된 교리들과 합쳐졌다. 그러한 사상들의 개입은 좀 더 빠르게 근동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거나 물질적인 모든 사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들, 또는 관념적 영에 대한 많은 플라톤의 이론들이 포함된 것이, 후에 필로에 의해 히브리 신학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리스도교 가르침들을 서방의 그리스인들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었다.

토단이가 처음으로 왕국의 복음을 알게 되었던 곳이 림몬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메시지를 메소포타미아와 그 밖으로까지 전달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설교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1. PREACHING AT RIMMON

146:1.1 (1637.3) The small city of Rimmon had once been dedicated to the worship of a Babylonian god of the air, Ramman. Many of the earlier Babylonian and later Zoroastrian teachings were still embraced in the beliefs of the Rimmonites; therefore did Jesus and the twenty-four devote much of their time to the task of making 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older beliefs an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Peter here preached one of the great sermons of his early career on “Aaron and the Golden Calf.”

146:1.2 (1637.4) Although many of the citizens of Rimmon became believers in Jesus’ teachings, they made great trouble for their brethren in later years. It is difficult to convert nature worshipers 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adoration of a spiritual ideal during the short space of a single lifetime.

146:1.3 (1637.5) Many of the better of the Babylonian and Persian ideas of light and darkness, good and evil, time and eternity, were later incorporated in the doctrines of so-called Christianity, and their inclusion rendered the Christian teachings more immediately acceptable to the peoples of the Near East. In like manner, the inclusion of many of Plato’s theories of the ideal spirit or invisible patterns of all things visible and material, as later adapted by Philo to the Hebrew theology, made Paul’s Christian teachings more easy of acceptance by the western Greeks.

146:1.4 (1637.6) It was at Rimmon that Todan first heard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 later carried this message into Mesopotamia and far beyond. He was among the first to preach the good news to those who dwelt beyond the Euphrates.

제 2 장. 요타파타에서

요타파타의 일반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편, 그들이 이 작은 도시에서 체류하던 둘째 날 밤에 예수와 24 명들에게 주었던 강연은, 이 요타파타에서의 사명활동을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다니엘이 마음속에서 기도와 감사와 경배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장시간 설명하였다. 현대 용어로 요약해보자면, 이 강연은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2. AT JOTAPATA

146:2.1 (1638.1) While the common people of Jotapata heard Jesus and his apostles gladly and many accepted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was the discourse of Jesus to the twenty-four on the second evening of their sojourn in this small town that distinguishes the Jotapata mission. Nathaniel was confused in his mind about the Master’s teachings concerning prayer, thanksgiving, and worship, and in response to his question Jesus spoke at great length in further explanation of his teaching. Summarized in modern phraseology, this discourse may be presented as emphasizing the following points:

1.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의식적이고도 끈질기게 사악한 불의를 생각하면,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 영적 교통의 순환회로와 인간 혼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파괴한다. 자연히 하느님은 자기 자녀의 탄원을 듣고 계시지만, 인간의 가슴이 사악한 불의의 개념을 자의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담고 있으면, 이 세상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 교제는 단계적으로 연이어서 없어진다.

2. 이미 알려져 있고 확립된 하느님의 법들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파라다이스 신(神)들에게는 하나의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만약 하느님들께서 영적, 마음적, 물질적인 법들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창조에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창조체들의 그러한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오만한 행위는,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필사자들의 개인적 탄원들을 듣고 있던 영적 개인성들의 귀를 떠나가게 한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스가랴 예언서로부터 글을 인용하였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깨를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다. 그들이 그 가슴을 돌과 같이 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영으로 보낸 나의 법과 말들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죄있는 머리 위로 큰 천벌을 불렀다. 그들이 자비를 구하는 소리가 들려 왔으나, 거기에는 그것을 들을 어떤 귀도 열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의 속담을 인용하였다: “신성한 법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기도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3. 하느님-사람간의 교통의 통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 놓자마자, 필사자들은 창조 세상으로 언제나 흐르는 신성한 사명활동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이 그들의 가슴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한 체험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께서 동시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한다. 죄의 사함까지도 이와 똑같은 틀림없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였지만, 그러한 용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희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이어질 수 없다. 하느님의 사실적인 용서는,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험 안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리고 신성한 그리고 인간적 용서가 동조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었다.

4. 우주 안에는 공의의 기본적인 법칙이 있으며, 자비가 이것을 피해 갈 아무런 힘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의, 철저하게 이기적인 창조체는 파라다이스의 사심-없는 영광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조차도, 생존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필사 창조체에게도 영원한 생존의 구원을 강요할 수 없다. 자비는 증여에서의 엄청난 허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자비와 통합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효과

146:2.2 (1638.2) 1. The conscious and persistent regard for iniquity in the heart of man gradually destroys the prayer connection of the human soul with the spirit circuits of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his Maker. Naturally God hears the petition of his child, but when the human heart deliberately and persistently harbors the concepts of iniquity, there gradually ensues the loss of personal communion between the earth child and his heavenly Father.

146:2.3 (1638.3) 2. That prayer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known and established laws of God is an abomination to the Paradise Deities. If man will not listen to the Gods as they speak to their creation in the laws of spirit, mind, and matter, the very act of such deliberate and conscious disdain by the creature turns the ears of spirit personalities away from hearing the personal petitions of such lawless and disobedient mortals. Jesus quoted to his apostles from the Prophet Zechariah: “But they refused to hearken and pulled away the shoulder and stopped their ears that they should not hear. Yes, they made their hearts adamant like a stone, lest they should hear my law and the words which I sent by my spirit through the prophets; therefore did the results of their evil thinking come as a great wrath upon their guilty heads. And so it came to pass that they cried for mercy, but there was no ear open to hear.” And then Jesus quoted the proverb of the wise man who said: “He who turns away his ear from hearing the divine law, even his prayer shall be an abomination.”

146:2.4 (1638.4) 3. By opening the human end of the channel of the God-man communication, mortals make immediately available the ever-flowing stream of divine ministry to the creatures of the worlds. When man hears God's spirit speak within the human heart, inherent in such an experience is the fact that God simultaneously hears that man's prayer. Even the forgiveness of sin operates in this same unerring fashion. The Father in heaven has forgiven you even before you have thought to ask him, but such forgiveness is not available in you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until such a time as you forgive your fellow men. God's forgiveness in fact is not conditioned upon your forgiving your fellows, but in experience it is exactly so conditioned. And this fact of the synchrony of divine and human forgiveness was thus recognized and linked together in the prayer which Jesus taught the apostles.

146:2.5 (1638.5) 4. There is a basic law of justice in the universe which mercy is powerless to circumvent. The unselfish glories of Paradise are not possible of reception by a thoroughly selfish creature of the realms of time and space. Even the infinite love of God cannot force the salvation of eternal survival upon any mortal creature who does not choose to survive. Mercy has great latitude of bestowal, but, after all, there are

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공의의 명령들이 있다. 예수는 다시 히브리 성서에서 인용하였다: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거부하였고; 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이러한 반역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생명의 길을 배척하였으므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를 간곡히 구하여도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5.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비를 내보여야만 한다; 심판을 하지 않아야 너희가 심판 받지 않게 된다. 너희가 그것으로 남을 심판하는 그 영으로, 너희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우주의 공정성을 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참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나, 그 역시 언젠가는 도움을 부르짖을 것이고, 그 때에 아무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모든 기도의 진지함은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모든 탄원의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이 응답의 시기, 방식, 그리고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신의 무지하고 경험없는 자녀들의 어리석은 기도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탄원을 드리면서 많은 기쁨과 실제 혼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6.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봉헌하게 되면, 너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충만하게 부합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그의 광대한 우주에 두루 언제까지나 현시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청원에 대한 대답은 나타날 것이다. 진실한 자녀가 원하고 무한한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들은 존재한다. 그러한 기도는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어떤 종류의 청원도 도저히 충분하게 응답될 수는 없다.

7. 정의로운 자의 외침은 하느님의 자녀의 신앙 활동이며, 이것은 선함, 진리,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찬 아버지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좋은 선물들은 아들의 접근을 그리고 개인적 전용이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있어 왔다. 기도는 사람을 향한 신성한 태도를 변화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함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 기도의 동기가 신성한 귀에 이르는 통행권을 주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외관상의 종교적 지위가 통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8. 기도가 시간의 단축이나 혹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웅대해지는 자아를 위한 것이거나 자기 동료들보다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법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혼은 진정한 의미의 언어로 기도할 수 없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의 최극의 기쁨이 하느님의 성격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네 가슴의 진지한 소원을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

mandates of justice which even love combined with mercy cannot effectively abrogate. Again Jesus quoted from the Hebrew scriptures: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hear; I stretched out my hand, but no man regarded. You have set at naught all my counsel, and you have rejected my reproof, and because of this rebellious attitude it becomes inevitable that you shall call upon me and fail to receive an answer. Having rejected the way of life, you may seek me diligently in your times of suffering, but you will not find me.”

146:2.6 (1639.1) 5. They who would receive mercy must show mercy; 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With the spirit with which you judge others you also shall be judged. Mercy does not wholly abrogate universe fairness. In the end it will prove true: “Whoso stops his ears to the cry of the poor, he also shall some day cry for help, and no one will hear him.” The sincerity of any prayer is the assurance of its being heard; the spiritual wisdom and universe consistency of any petition is the determiner of the time, manner, and degree of the answer. A wise father does not *literally* answer the foolish prayers of his ignorant and inexperienced children, albeit the children may derive much pleasure and real soul satisfaction from the making of such absurd petitions.

146:2.7 (1639.2) 6. When you have become wholly dedicated to the doing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 answer to all your petitions will be forthcoming because your prayers will be in full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and the Father's will is ever manifest throughout his vast universe. What the true son desires and the infinite Father wills IS. Such a prayer cannot remain unanswered, and no other sort of petition can possibly be fully answered.

146:2.8 (1639.3) 7. The cry of the righteous is the faithful act of the child of God which opens the door of the Father's storehouse of goodness, truth, and mercy, and these good gifts have long been in waiting for the son's approach and personal appropriation. Prayer does not change the divine attitude toward man, but it does change man's attitude toward the changeless Father. The *motive* of the prayer gives it right of way to the divine ear, not the social, economic, or outward religious status of the one who prays.

146:2.9 (1639.4) 8. Prayer may not be employed to avoid the delays of time or to transcend the handicaps of space. Prayer is not designed as a technique for aggrandizing self or for gaining unfair advantage over one's fellows. A thoroughly selfish soul cannot pra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Said Jesus: “Let your supreme delight be in the character of God, and he shall surely give you the sincere desires of your hear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For the

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참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에 관하여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의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너희의 실제 필요와 소원들에 맞추어 너희를 위하여 대신 탄원하여 줄 것이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아-중심적이 되려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너희 형제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고;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의 풍성한 선물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10. 너희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이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지능적인 사명활동을 대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기도를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너희 안에 거하는 영(靈)이 너를 움직여, 영들의 아버지와 맺는 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탄원들을 말하게 할 것이다.”

11. 많은 호소가 단지 문제에 있을 때에만 기도한다. 그러한 실천 관행은 경솔하고 잘못 인도된 것이다. 너희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또한 너희의 혼과 함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너희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실제 탄원은 항상 남몰래 드리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개인적 기도를 듣게 하지 마라. 감사함의 기도는 경배자의 집단에게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적 문제이다.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기도의 형식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2.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할 것이다. 히브리 성서들에 기록된 모든 기도들 가운데에서, 그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논평하였다: “하느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가슴을 창조하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은밀한 죄들로부터 씻어 주시며, 당신의 하인을 외람된 범죄로부터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는 경솔하고 죄를 범하는 말투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하여 매우 길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글들을 인용하였다: “오,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혀는 사람이 거의 다스리기 힘든 신체의 일부이지만, 내주하는 영만이 이 건잡을 수 없는 몸의 일부를 부드러운 관용의 음성과 자비의 영감 어린 사명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였다.

13. 예수는 땅에서 사는 일생의 여로에서 신

Lord hears the cry of the needy, and he will regard the prayer of the destitute.”

146:2.10 (1639.5) 9. “I have come forth from the Father; if, therefore, you are ever in doubt as to what you would ask of the Father, ask in my name, and I will present your petition in accordance with your real needs and desires and in accordance with my Father's will.” Guard against the great danger of becoming self-centered in your prayers. Avoid praying much for yourself; pray more for the spiritual progress of your brethren. Avoid materialistic praying; pray in the spirit and for the abundance of the gifts of the spirit.

146:2.11 (1639.6) 10. When you pray for the sick and afflicted, do not expect that your petitions will take the place of loving and intelligent ministry to the necessities of these afflicted ones. Pray for the welfare of your families, friends, and fellows, but especially pray for those who curse you, and make loving petitions for those who persecute you. “But when to pray, I will not say. Only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you may move you to the utterance of those petitions which are expressive of your inner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of spirits.”

146:2.12 (1640.1) 11. Many resort to prayer only when in trouble. Such a practice is thoughtless and misleading. True, you do well to pray when harassed, but you should also be mindful to speak as a son to your Father even when all goes well with your soul. Let your real petitions always be in secret. Do not let men hear your personal prayers. Prayers of thanksgiving are appropriate for groups of worshipers, but the prayer of the soul is a personal matter. There is but one form of prayer which is appropriate for all God's children, and that is: “Nevertheless, your will be done.”

146:2.13 (1640.2) 12. All believers in this gospel should pray sincerely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Of all the prayers of the Hebrew scriptures he commented most approvingly on the petition of the Psalmist: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Purge me from secret sins and keep back your servant from presumptuous transgression.” Jesus commented at great length on the relation of prayer to careless and offending speech, quoting: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The human tongue,” said Jesus, “is a member which few men can tame, but the spirit within can transform this unruly member into a kindly voice of tolerance and an inspiring minister of mercy.”

146:2.14 (1640.3) 13. Jesus taught that the prayer for divine guidance over the pathway of earthly life

성한 안내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탄원하는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실제 안에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탄원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는 결코 기도로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사람이 그 신성한 영의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능력이 커지는 것의 한 요소가 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연관-동료들에게 영과 진리 속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전심을 다하여 지능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확고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14.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반복, 유창한 말, 금식, 참회, 희생물이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자들에게 감사함을 통하여 진정한 경배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의 기도와 경배에서 감사의 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한탄하였다. 그는 이 경우에 관해 성서에서 글을 인용하였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고자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며, 매일 아침마다 그의 자애로움을 인정하며, 매일 밤마다 그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그가 일을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것이다.”

15. 그리고 나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문제들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너희의 진지한 감사의 영과 함께, 기도와 간청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펼쳐지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성서에서 이렇게 인용하였다: “내가 노래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느님을 광대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16.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는, 내주하고 있는 영이 듣고 있는 혼에게 말하는 더 좋은 기회를 여유롭게 제공하도록, 고요한 집수성 안에서 한동안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가장 좋다. 우리는 아버지의 내주 하는 영의 도움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명활동을 통한 인간 마음의 광채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 예수는, 경배가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분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해준다고 가르쳤다. 경배는 유한자가 무한자의 현존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그러한 변환하는 체험이다.

예수는 사람과 하느님과 교통에 관한 다른 많은 진리들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들 중 많은 이가 그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품지는 못하였다.

was next in importance to the petition for a knowledge of the Father's will. In reality this means a prayer for divine wisdom. Jesus never taught that human knowledge and special skill could be gained by prayer. But he did teach that prayer is a factor in the enlargement of one's capacity to receive the presence of the divine spirit. When Jesus taught his associates to pray in the spirit and in truth, he explained that he referred to praying sincerely and in accordance with one's enlightenment, to praying wholeheartedly and intelligently, earnestly and steadfastly.

146:2.15 (1640.4) 14. Jesus warned his followers against thinking that their prayers would be rendered more efficacious by ornate repetitions, eloquent phraseology, fasting, penance, or sacrifices. But he did exhort his believers to employ prayer as a means of leading up through thanksgiving to true worship. Jesus deplored that so little of the spirit of thanksgiving was to be found in the prayers and worship of his followers. He quoted from the Scriptures on this occasion, saying: "It is a good thing to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s to the name of the Most High, to acknowledge his loving-kindness every morning and his faithfulness every night, for God has made me glad through his work. In everything I will give thank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146:2.16 (1640.5) 15. And then Jesus said: "Be not constantly overanxious about your common needs. Be not apprehensive concerning the problems of your earthly existence, but in all these things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e spirit of sincere thanksgiving, let your needs be spread out before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en he quoted from the Scriptures: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with a song and will magnify him with thanksgiving. And this will please the Lord better than the sacrifice of an ox or bullock with horns and hoofs."

146:2.17 (1641.1) 16. Jesus taught his followers that, when they had made their prayers to the Father, they should remain for a time in silent receptivity to afford the indwelling spirit the better opportunity to speak to the listening soul. The spirit of the Father speaks best to man when the human mind is in an attitude of true worship. We worship God by the aid of the Father's indwelling spirit and by the illumination of the human mind through the ministry of truth. Worship, taught Jesus, makes one increasingly like the being who is worshiped. Worship is a transforming experience whereby the finite gradually approaches and ultimately attains the presence of the Infinite.

146:2.18 (1641.2) And many other truths did Jesus tell his apostles about man's communion with God, but not many of them could fully encompass his teaching.

제 3 장. 라마에 들리심

예수는 라마에서 연로(年老)한 그리스 철학자와 기억에 남을 만한 토의를 하였는데, 그 철학자는 과학과 철학만으로도 인간 체험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었다. 예수가 이 그리스 선생의 말에 인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말의 많은 부분들이 진리임을 인정하였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예수는 단지 그가 인간 실존의 토의에서 “어떻게, 왜, 어디로”를 설명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네가 끝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종교는 마음 혼자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거나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실체들을 다루는, 사람의 혼에 대한 계시이다. 지적(知的)인 분투가 생명의 사실들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왕국 복음은 존재에 관한 진리들을 밝혀준다. 너는 진리에 대한 물질적인 그림자들을 언급하였다; 이제 내가 필사 실존의 물질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간의 그림자들을 벗어버린, 영원하고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보겠느냐?” 한 시간 이상 동안 예수가 이 그리스인에게 왕국 복음의 구원의 진리들을 가르쳤다. 그 연로한 철학자는 주(主)의 접근 방법에 쉽게 따라 왔으며, 진정으로 정직한 본심의 자세로 구원의 복음을 빨리 믿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공공연하게 그리스인의 많은 주장들에 찬성하는 태도 때문에 약간 당황하였지만, 예수는 나중에 사적(私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인의 철학에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참되고 순수한 내적 확신은 외부적인 분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는 정직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화내지 않는다. 편협함은 자기의 믿음에 담겨있는 진실함을 스스로 은밀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감싸 감추는 가면이라는 점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완전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태도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는다. 용기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신념과 숭고한 이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마에서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어떻게 해야 새 신도들이 당신의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왕국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알고 또 실제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왕국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생존할 것에 대한 너희의 확신은 전적으로 너희의 개인적 체험—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의 너희의 개인적 종교 체험과 동등한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진리의 실체에 대한 너희의 지적 납득과 너희의 영적 신

3. THE STOP AT RAMAH

146:3.1 (1641.3) At Ramah Jesus had the memorable discussion with the aged Greek philosopher who taught that science and philosophy were sufficient to satisfy the needs of human experience. Jesus listened with patience and sympathy to this Greek teacher, allowing the truth of many things he said but pointing out that, when he was through, he had failed in his discussion of human existence to explain “whence, why, and whither,” and added: “Where you leave off, we begin. Religion is a revelation to man’s soul dealing with spiritual realities which the mind alone could never discover or fully fathom. Intellectual strivings may reveal the facts of life, but the gospel of the kingdom unfolds the truths of being. You have discussed the material shadows of truth; will you now listen while I tell you about the eternal and spiritual realities which cast these transient time shadows of the material facts of mortal existence?” For more than an hour Jesus taught this Greek the sav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old philosopher was susceptible to the Master’s mode of approach, and being sincerely honest of heart, he quickly believed this gospel of salvation.

146:3.2 (1641.4) The apostles were a bit disconcerted by the open manner of Jesus’ assent to many of the Greek’s propositions, but Jesus afterward privately said to them: “My children, marvel not that I was tolerant of the Greek’s philosophy. True and genuine inward certainty does not in the least fear outward analysis, nor does truth resent honest criticism. You should never forget that intolerance is the mask covering up the entertainment of secret doubts as to the trueness of one’s belief. No man is at any time disturbed by his neighbor’s attitude when he has perfect confidence in the truth of that which he wholeheartedly believes. Courage is the confidence of thoroughgoing honesty about those things which one professes to believe. Sincere men are unafraid of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ir true convictions and noble ideals.”

146:3.3 (1641.5) On the second evening at Ramah, Thomas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how can a new believer in your teaching really know, really be certain, about the truth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146:3.4 (1641.6) And Jesus said to Thomas: “Your assurance that you have entered into the kingdom family of the Father, and that you will eternally survive with the children of the kingdom, is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 faith in the word of truth. Spiritual assurance is the equivalent of you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the eternal realities of divine truth and is otherwise equal to

앙을 합하고 그리고는 너희의 솔직한 의심들을 뺀 것과 똑 같다.

“아들은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받는다. 너희가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자질로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아버지의 살아 있는 영과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육신을 가진 물질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오기 이전에도 이러한 생명을 살아 왔는데, 이제 나의 말을 믿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그 신성한 영을 볼 수 없기는 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혼이 가진 힘의 통제, 이렇게 깃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 그 정도를 알아보는 실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동료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정도이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어김없이 거룩한 경배로 인도하고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 처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내주 하는 현존의 인도를 좀 더 의식하게 되어,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만;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이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 혼들의 영적 자질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현존, 너희의 영을 증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지금 일부의 사람들 안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자녀마다.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알 것이며,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일생으로부터 영원한 영토로 가는 길이 평이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고, 그것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 길을 새롭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다. 왕국에 들어오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 대부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현재의 체험들을 회고해 볼 수 있을 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들을 들었던 모든 이들은 기쁨이 넘쳤다. 의로운 자들의 생존에 관한 유대인의 가르침들은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것들이었으며, 예수의 추종자들은 진실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존으로의 확신에 대한 확고하고 긍정적인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신선함과 영감을 갖게 되었다.

사도들은 설교하고 신도에게 세례 주는 일을

your intelligent understanding of truth realities plus your spiritual faith and minus your honest doubts.

146:3.5 (1642.1) “The Son is naturally endowed with the life of the Father. Having been endowed with the living spirit of the Father, you are therefore sons of God. You survive your life in the material world of the flesh because you are identified with the Father's living spirit, the gift of eternal life. Many, indeed, had this life before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and many more have received this spirit because they believed my word; but I declare that, when I return to the Father, he will send his spirit into the hearts of all men.

146:3.6 (1642.2) “While you cannot observe the divine spirit at work in your minds, there is a practical method of discovering the degree to which you have yielded the control of your soul powers to the teaching and guidance of this indwelling spirit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at is the degree of your love for your fellow men. This spirit of the Father partakes of the love of the Father, and as it dominates man, it unfailingly leads in the directions of divine worship and loving regard for one's fellows. At first you believe that you are sons of God because my teaching has made you more conscious of the inner leadings of our Father's indwelling presence; but presently the Spirit of Truth shall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it will live among men and teach all men, even as I now live among you and speak to you the words of truth. And this Spirit of Truth, speaking for the spiritual endowments of your souls, will help you to know that you are the sons of God. It will unfailingly bear witness with the Father's indwelling presence, your spirit, then dwelling in all men as it now dwells in some, telling you that you are in reality the sons of God.

146:3.7 (1642.3) “Every earth child who follows the leading of this spirit shall eventually know the will of God, and he who surrenders to the will of my Father shall abide forever. The way from the earth life to the eternal estate has not been made plain to you, but there is a way, there always has been, and I have come to make that way new and living. He who enters the kingdom has eternal life already — he shall never perish. But much of this you will the better understand when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nd you are able to view your present experiences in retrospect.”

146:3.8 (1642.4) And all who heard these blessed words were greatly cheered. The Jewish teachings had been confused and uncertain regarding the survival of the righteous, and it was refreshing and inspiring for Jesus' followers to hear these very definite and positive words of assurance about the eternal survival of all true believers.

146:3.9 (1642.5) The apostles continued to preach and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실천을 지켜 나갔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와 고통 받는 자에게 사명활동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예수의 사도 각자가 요한의 사도 한 사람씩을 연관·동료로 동반하게 되어, 그들의 사도 조직이 확대되었다; 아브너는 안드레의 함께 일하는 자로 일하였고, 이 방식은 그들이 다음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스블론 체류 기간에 있었던 예수의 특별한 교훈은 주로 왕국의 상호간의 의무들에 대해 좀 더 깊이가 있는 토론과, 사회적 종교 의무에서의 친목과 개인적 종교 체험 간의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해주려는 포용하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은 주(主)가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였던, 몇 번 안 되는 경우들 중의 하나였다. 그의 지상 일생 전부를 통하여,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종교의 사회적인 면에 관해서는 거의 교훈을 준 적이 없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라고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스블론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는 몇 사람 없었다.

제 4 장. 아이론에서의 복음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많은 다른 작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회당들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의 초기 사명활동 기간 동안 그에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아침 봉사에배의 설교를 맡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중의 하나가 오후에 설교하였다. 또한 예수와 사도들은 회당의 주중 저녁 모임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예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반목이 점점 더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도시 외곽에 있는 회당의 일에는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예수의 대중 사명활동으로 인하여 예수에 반대하는 정서가 그처럼 폭넓게 퍼질 수 있어서, 예수의 가르침이 모든 회당에서 금지 당했던 것은 더 나중에 가서였다. 이 당시에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모든 회당들이 그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아이론은 그 당시에 상당한 양의 광물질을 생산하는 광산들의 소재지였으며, 예수는 광부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광산에서 보내었다. 사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공공 장소에서 설교하는 동안, 예수는 광산 지하에서 광부들과 함께 일하였다. 병의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이 외딴 동네에까지도 퍼져 있었고, 많은 병든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의 손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를 찾아 왔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치유 사명활동으로 크게 혜택을

baptize believers, while they kept up the practice of visiting from house to house, comforting the downcast and ministering to the sick and afflicted. The apostolic organization was expanded in that each of Jesus' apostles now had one of John's as an associate; Abner was the associate of Andrew; and this plan prevailed until they went down to Jerusalem for the next Passover.

146:3.10 (1642:6) The special instruction given by Jesus during their stay at Zebulun had chiefly to do with further discussions of the mutual obligations of the kingdom and embraced teaching designed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amities of social religious obligations. This was one of the few times the Master ever discussed the social aspects of religion. Throughout his entire earth life Jesus gave his followers very little instruction regarding the socialization of religion.

146:3.11 (1643:1) In Zebulun the people were of a mixed race, hardly Jew or gentile, and few of them really believed in Jesus, notwithstanding they had heard of the healing of the sick at Capernaum.

4. THE GOSPEL AT IRON

146:4.1 (1643:2) At Iron, as in many of even the smaller cities of Galilee and Judea, there was a synagogue, and during the earlier times of Jesus' ministry it was his custom to speak in these synagogues on the Sabbath day. Sometimes he would speak at the morning service, and Peter or one of the other apostles would preach at the afternoon hour. Jesus and the apostles would also often teach and preach at the weekday evening assemblies at the synagogue. Although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became increasingly antagonistic toward Jesus, they exercised no direct control over the synagogues outside of that city. It was not until later in Jesus' public ministry that they were able to create such a widespread sentiment against him as to bring about the almost universal closing of the synagogues to his teaching. At this time all the synagogues of Galilee and Judea were open to him.

146:4.2 (1643:3) Iron was the site of extensive mineral mines for those days, and since Jesus had never shared the life of the miner, he spent most of his time, while sojourning at Iron, in the mines. While the apostles visited the homes and preached in the public places, Jesus worked in the mines with these underground laborers. The fame of Jesus as a healer had spread even to this remote village, and many sick and afflicted sought help at his hands, and many were greatly benefited by his

입었다. 이 경우들 중에서 문둥병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主)는 절대로 기적을 통하여 병을 치유하지 않았다.

이론에서의 셋째 날 늦은 오후에, 예수가 광산으로부터 그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을 우연히 통과하게 되었다. 그가 한 문둥병자의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가까이 왔을 때, 병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들은 이 고통당하는 자는 예수가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시자, 그에게 감히 다가가 뚫어 엎드려 탄원하였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메시지를 저는 들어왔으며, 제가 깨끗케 될 수만 있다면, 저도 그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둥병자들은 회당에 참석하거나 대중 경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문둥병에서 깨끗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다가오는 왕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예수는 고난당하는 그를 보았고 그러한 신앙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인간 가슴이 감동되었고 신성한 마음이 연민으로 움직였다. 예수가 그를 바라보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자 주(主)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말씀하였다: “내가 원하니—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로 그가 치료되었고;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네 몸을 사제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케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명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지시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 문둥병을 고쳤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의 문둥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케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사제에 가라고 한 훈계를 그는 듣지 않았다. 그가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는 소식을 온 사방에 퍼뜨린 결과로 주(主)에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주(主)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를 떠났다. 예수가 다시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았지만, 광산 근처의 교외에서 이들을 더 남았으면서 신도가 된 광부들에게 왕국 복음에 관하여 좀 더 가르침을 베풀었다.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 이때까지에서 예수가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행하였던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실제적인 문둥병자였다.

그들은 이론에서부터 기스칼라로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 코라진으로 출발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을 전하였지만; 코라진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예수가 가르치셨던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그의 메시지가 개괄적인 거절을 당했던 적은 없었다. 코라진에서의 체류는

healing ministry. But in none of these cases did the Master perform a so-called miracle of healing save in that of the leper.

146:4.3 (1643.4) Late on the afternoon of the third day at Iron, as Jesus was returning from the mines, he chanced to pass through a narrow side street on his way to his lodging place. As he drew near the squalid hovel of a certain leprous man, the afflicted one, having heard of his fame as a healer, made bold to accost him as he passed his door, saying as he knelt before him: “Lord, if only you would, you could make me clean. I have heard the message of your teachers, and I would enter the kingdom if I could be made clean.” And the leper spoke in this way because among the Jews lepers were forbidden even to attend the synagogue or otherwise engage in public worship. This man really believed that he could not be received into the coming kingdom unless he could find a cure for his leprosy. And when Jesus saw him in his affliction and heard his words of clinging faith, his human heart was touched, and the divine mind was moved with compassion. As Jesus looked upon him, the man fell upon his face and worshiped. Then the Master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touching him, said: “I will — be clean.” And immediately he was healed; the leprosy no longer afflicted him.

146:4.4 (1643.5) When Jesus had lifted the man upon his feet, he charged him: “See that you tell no man about your healing but rather go quietly about your business, showing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ing those sacrifices commanded by Moses in testimony of your cleansing.” But this man did not do as Jesus had instructed him. Instead, he began to publish abroad throughout the town that Jesus had cured his leprosy, and since he was known to all the village, the people could plainly see that he had been cleansed of his disease. He did not go to the priests as Jesus had admonished him. As a result of his spreading abroad the news that Jesus had healed him, the Master was so thronged by the sick that he was forced to rise early the next day and leave the village. Although Jesus did not again enter the town, he remained two days in the outskirts near the mines, continuing to instruct the believing miners further regard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146:4.5 (1644.1) This cleansing of the leper was the first so-called miracle which Jesus had intentionally and deliberately performed up to this time. And this was a case of real leprosy.

146:4.6 (1644.2) From Iron they went to Gischala, spending two days proclaiming the gospel, and then departed for Chorazin, where they spent almost a week preaching the good news; but they were unable to win many believers for the kingdom in Chorazin. In no place where Jesus had taught had he met with such a general rejection of his

대부분의 사도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으며, 안드레와 아브너 자기 연관-동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가버나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매돈 마을로 갔는데, 그곳 역시 거의 다름이 없었다. 모든 사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최근에 방문했던 마을에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예수가 치유된 병자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관념이 만연했다. 예수가 또 다른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그의 능력을 현시하기를 그들은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주(主)는 그들의 열렬한 간청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제 5 장. 가나로 돌아옴

사도 집단은 예수가 “우리가 내일 가나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자, 매우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나에서는, 그곳에서 예수가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크게 공감하는 청중을 가질 것이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을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셋째 날에, 가버나움의 유명 인사인 타이투스가 가나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아직 믿음이 부분적인 자였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예수가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서둘러 그곳에 왔다. 가버나움의 신도들은 예수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유명 인사는 가나에 예수가 계신 곳을 알 아내자, 그에게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도들이 숨을 죽이고 기대감에 차서 옆에 서 있는 동안, 예수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였다: “얼마나 더 오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가? 하느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유명 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께 간청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죽기 전에 가 주십시오. 제가 떠날 때, 그 아이는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 속에서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하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타이투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하인들이 그를 만나러 나와서 말하기를, “기쁨을 향유 하십시오—당신의 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그가 살았습니다.” 그때 타이투스가 그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자, 종들이 대답하기를,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가 “네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던 시간이라는 것을 회상하였다. 그때 이후로 타이투스는 전심을 다 바쳐 믿었고, 그의 온 가족들도 또한 믿게 되었다. 이 아이는 왕국의 강력한 사명활동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던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 타이투스의 온 집안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기적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

message. The sojourn at Chorazin was very depressing to most of the apostles, and Andrew and Abner had much difficulty in upholding the courage of their associates. And so, passing quietly through Capernaum, they went on to the village of Madon, where they fared little better. There prevailed in the minds of most of the apostles the idea that their failure to meet with success in these towns so recently visited was due to Jesus' insistence that they refrain, in their teaching and preaching, from referring to him as a healer. How they wished he would cleanse another leper or in some other manner so manifest his power a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people! But the Master was unmoved by their earnest urging.

5. BACK IN CANA

146:5.1 (1644.3) The apostolic party was greatly cheered when Jesus announced, “Tomorrow we go to Cana.” They knew they would have a sympathetic hearing at Cana, for Jesus was well known there. They were doing well with their work of bringing people into the kingdom when, on the third day, there arrived in Cana a certain prominent citizen of Capernaum, Titus, who was a partial believer, and whose son was critically ill. He heard that Jesus was at Cana; so he hastened over to see him. The believers at Capernaum thought Jesus could heal any sickness.

146:5.2 (1644.4) When this nobleman had located Jesus in Cana, he besought him to hurry over to Capernaum and heal his afflicted son. While the apostles stood by in breathless expectancy, Jesus, looking at the father of the sick boy, said: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The power of God is in your midst, but except you see signs and behold wonders, you refuse to believe.” But the nobleman pleaded with Jesus, saying: “My Lord, I do believe, but come ere my child perishes, for when I left him he was even then at the point of death.” And when Jesus had bowed his head a moment in silent meditation, he suddenly spoke, “Return to your home; your son will live.” Titus believed the word of Jesus and hastened back to Capernaum. And as he was returning, his servants came out to meet him, saying, “Rejoice, for your son is improved — he lives.” Then Titus inquired of them at what hour the boy began to mend, and when the servants answered “yesterday about the seventh hour the fever left him,” the father recalled that it was about that hour when Jesus had said, “Your son will live.” And Titus henceforth believed with a whole heart, and all his family also believed. This son became a mighty minister of the kingdom and later yielded up his life with those who suffered in Rome. Though the entire household of Titus, their friends, and even the apostles regarded this episode as a miracle, it was not. At least this was not a miracle

다. 적어도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 기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의 과정에 대한 그의 선형지식의 경우로써,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주 의존한 그러한 지식이었다.

다시 한 번 예수는 가나로부터 떠나야만 하였는데, 두 번째의 에피소드로 인하여 지나친 관심이 이 동네에서 그의 사명활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는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명 인사의 아들을 고친 셈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멀리서 고쳐 주기를 바란다는 메신저들을 또한 보내오기도 하였다. 온 지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 예수는, “나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였다.

제 6 장. 나인과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기적을 찾는 세대였다. 이 무렵까지 중부와 남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개인적 사명활동에 대하여 기적이 나타날 것을 고대해 오고 있었다. 순전히 정신적인 갈등이나 감정적인 혼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수많은 진실한 사람들도 예수의 현존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치유 경우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 기적적인 고침을 받았다고 여겼다.

예수가 가나를 떠나 나인으로 가시려고 하자, 수많은 신도들과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 하였으며, 실망을 겪지 않게 되어 있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근처의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나인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이 여인은 매우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 죽은 소년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례의 행렬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 앞까지 왔을 때, 과부와 그녀의 친구들이 주(主)를 알아보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가 인간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기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그러한 치료자라면 왜 죽음에서도 살려낼 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한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는 앞으로 나아가 관의 뚜껑을 열고 그 소년을 조사하였다. 그 젊은이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현존이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비극임을 알아차리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울음을 그쳐라. 너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가 자고 있다. 그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자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젊은이가 곧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후 예수는 그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었다.

of curing physical disease. It was merely a case of preknowledge concerning the course of natural law, just such knowledge as Jesus frequently resorted to subsequent to his baptism.

146:5.3 (1645.1) Again was Jesus compelled to hasten away from Cana because of the undue attention attracted by the second episode of this sort to attend his ministry in this village. The townspeople remembered the water and the wine, and now that he was supposed to have healed the nobleman's son at so great a distance, they came to him, not only bringing the sick and afflicted but also sending messengers requesting that he heal sufferers at a distance. And when Jesus saw that the whole countryside was aroused, he said, "Let us go to Nain."

6. NAIN AND THE WIDOW'S SON

146:6.1 (1645.2) These people believed in signs; they were a wonder-seeking generation. By this time the people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had become miracle minded regarding Jesus and his personal ministry. Scores, hundreds, of honest persons suffering from purely nervous disorders and afflicted with emotional disturbances came into Jesus' presence and then returned home to their friends announcing that Jesus had healed them. And such cases of mental healing these ignorant and simple-minded people regarded as physical healing, miraculous cures.

146:6.2 (1645.3) When Jesus sought to leave Cana and go to Nain, a great multitude of believers and many curious people followed after him. They were bent on beholding miracles and wonders, and they were not to be disappointed. As Jesus and his apostles drew near the gate of the city, they met a funeral procession on its way to the near-by cemetery, carrying the only son of a widowed mother of Nain. This woman was much respected, and half of the village followed the bearers of the bier of this supposedly dead boy. When the funeral procession had come up to Jesus and his followers, the widow and her friends recognized the Master and besought him to bring the son back to life. Their miracle expectancy was aroused to such a high pitch they thought Jesus could cure any human disease, and why could not such a healer even raise the dead? Jesus, while being thus importuned, stepped forward and, raising the covering of the bier, examined the boy. Discovering that the young man was not really dead, he perceived the tragedy which his presence could avert; so, turning to the mother, he said: "Weep not. Your son is not dead; he sleeps. He will be restored to you." And then, taking the young man by the hand, he said, "Awake and arise." And the youth who was supposed to be dead presently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예수는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런 후 그 청년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가 무덤으로부터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나인의 온 동네는 감정적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심이 엄습하였으며, 한편 나머지 사람들은 꿇어앉아 기도를 하거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 울부짖었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무리들이 해산된 것은 밤이 오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물론 그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까지 말하였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 소년이 단지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평소 예수의 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항상 기적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겸손함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래서 예수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이 소문은 갈릴리 전역과 유대까지 퍼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었다. 예수는 자기가 과부의 아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소년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자신의 사도들에게 충분히 납득 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충분하게 그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대(後代)의 기록들에서 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누가는 에피소드가 자신에게 관계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의사로서 너무나 많은 초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일찍 엔도르로 출발하였다.

제 7 장. 엔도르에서

예수는 육신의 병 고침을 원하는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피하여 엔도르에서 며칠을 보내셨다. 이곳에서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주(主)는 사울 왕과 엔도르의 마녀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방황하고 있고 반역적인 중도자들, 때때로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여겨진, 개인이-아닌 것으로 해왔었던 그 존재들은 곧 통제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이상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후에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영을 모든 육신들에게 쏟아 부어준 후에는, 그러한 반(半)영적 존재들—소위 더러운 영들이라고 불리는—은 필사자들 속에서 미약한 자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다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였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인간 존재들로부터 떠나간 영들이 그들의 생존되고 있는 동료들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들이 있었던 기원적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한 섭리시대적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필사 사람의 진보된 영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단

Jesus sent them back to their homes.

146:6.3 (1645.4) Jesus endeavored to calm the multitude and vainly tried to explain that the lad was not really dead, that he had not brought him back from the grave, but it was useless. The multitude which followed him, and the whole village of Nain, were aroused to the highest pitch of emotional frenzy. Fear seized many, panic others, while still others fell to praying and wailing over their sins. And it was not until long after nightfall that the clamoring multitude could be dispersed. And, of course, notwithstanding Jesus' statement that the boy was not dead, everyone insisted that a miracle had been wrought, even the dead raised. Although Jesus told them the boy was merely in a deep sleep, they explained that that was the manner of his speaking and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he always in great modesty tried to hide his miracles.

146:6.4 (1646.1) So the word went abroad throughout Galilee and into Judea that Jesus had raised the widow's son from the dead, and many who heard this report believed it. Never was Jesus able to make even all his apostles fully understand that the widow's son was not really dead when he bade him awake and arise. But he did impress them sufficiently to keep it out of all subsequent records except that of Luke, who recorded it as the episode had been related to him. And again was Jesus so besieged as a physician that he departed early the next day for Endor.

7. AT ENDOR

146:7.1 (1646.2) At Endor Jesus escaped for a few days from the clamoring multitudes in quest of physical healing. During their sojourn at this place the Master recounted for the instruction of the apostles the story of King Saul and the witch of Endor. Jesus plainly told his apostles that the stray and rebellious midwayers who had oftentimes impersonated the supposed spirits of the dead would soon be brought under control so that they could no more do these strange things. He told his followers that, after he returned to the Father, and after they had poured out their spirit upon all flesh, no more could such semispirit beings — so-called unclean spirits — possess the feeble- and evil-minded among mortals.

146:7.2 (1646.3) Jesus further explained to his apostles that the spirits of departed human beings do not come back to the world of their origin to communicate with their living fellows. Only after the passing of a dispensational age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advancing spirit of mortal man to

지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행성의 영적 관리-행정의 한 부분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이틀 동안의 휴식을 취했을 때, 예수 가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지방이 조용해질 동안 우리는 내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치도록 하자. 집에 가면 지금쯤 이러한 종류의 흥분에서 다소 회복되어 있을 것이다..

return to earth and then only in exceptional cases and as a part of the spiritual administration of the planet.

146:7.3 (1646.4) When they had rested two days, Jesus said to his apostles: “On the morrow let us return to Capernaum to tarry and teach while the countryside quiets down. At home they will have by this time partly recovered from this sort of excitement.”

제 147 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 146

유랜시아 책

14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7 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섹션

소개

제 1 장. 백부장의 하인

제 2 장. 예루살렘으로 여행

제 3 장. 벳세다의 연못

제 4 장. 삶의 규칙

제 5 장.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하다

제 6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감

제 7 장.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감

제 8 장. 영적 선(善)의 축제

PAPER 147

THE INTERLUDE VISIT 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Centurion's Servant

2. The Journey to Jerusalem

3. At the Pool of Bethesda

4. The Rule of Living

5. Visiting Simon the Pharisee

6. Returning to Capernaum

7. Back in Capernaum

8. The Feast of Spiritual Goodness

소개

예수와 사도들은 3월 17일 수요일에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까지 두 주일을 벳세다의 본부에서 지냈다. 이 두 주일 동안 사도들은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한편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 언덕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세베대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티베리아스로 두 번 은밀히 여행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신도들과 함께 만났고, 왕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헤롯 집안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이러한 회합에 참석하였다. 그의 집안 출신으로 신도가 된 사람들의 영향은, 예수에 대한 그 통치자의 적대감이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되었었다. 티베리아스의 이 신도들은, 예수가 선포하는 “왕국”은 원래 영적인 것으로써, 정치적 위험이 없다는 점을 헤롯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 헤롯은 자기 집안사람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필요 이상의 걱정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밀고자를 온 사방으로 파견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그는 치유자나 종교 선생으로서의 예수의

INTRODUCTION

147:0.1 (1647.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in Capernaum on Wednesday, March 17, and spent two weeks at the Bethsaida headquarters before they departed for Jerusalem. These two weeks the apostles taught the people by the seaside while Jesus spent much time alone in the hills about his Father's business. During this period Jesus, accompanied by James and John Zebedee, made two secret trips to Tiberias, where they met with the believers and instructed them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47:0.2 (1647.2) Many of the household of Herod believed in Jesus and attended these meetings. It was the influence of these believers among Herod's official family that had helped to lessen that ruler's enmity toward Jesus. These believers at Tiberias had fully explained to Herod that the “kingdom” which Jesus proclaimed was spiritual in nature and not a political venture. Herod rather believed thes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and therefore did not permit himself to become unduly alarmed by the spreading abroad of the

일에는 아무런 적대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헤롯의 많은 충고자들과 헤롯 자신의 호의적인 태도에 불구하고,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던 약간의 신하들은 예수와 사도들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험악한 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공개적인 활동들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예수에게 가장 큰 위험은 헤롯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보다는 갈릴리에서 더 많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대중 설교를 하였다.

reports concerning Jesus' teaching and healing. He had no objections to Jesus' work as a healer or religious teacher. Notwithstanding the favorable attitude of many of Herod's advisers, and even of Herod himself, there existed a group of his subordinates who were so influenced by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that they remained bitter and threatening enemies of Jesus and the apostles and, later on, did much to hamper their public activities. The greatest danger to Jesus lay in the Jerusalem religious leaders and not in Herod. And it was for this very reason that Jesus and the apostles spent so much time and did most of their public preaching in Galilee rather than at Jerusalem and in Judea.

제 1 장. 백부장의 하인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에,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수비를 맡아보는 군대의 백부장인 망구스가 회당의 통치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의 충직한 하인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예수에게 가서 나의 하인을 좀 고쳐 달라고 간청해 주시겠습니까?” 그 로마 지휘관은 유대인 영도자가 예수에게 좀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하였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를 보러왔고 그들의 대변인이 말하였다: “선생님, 가버나움으로 가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으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으며, 당신께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하였던 그 회당을 우리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였다. 그가 백부장의 집으로 가자, 정원을 들어서기도 전에 그 로마의 군인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를 맞이하게 했으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저의 집에 들어오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되니,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당신 앞에 나갈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사람들인 장로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올 것임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으며,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내가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집으로부터 나가시며 예수는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였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망구스에게 예수가 한 말을

1. THE CENTURION'S SERVANT

147:1.1 (1647.3) On the day before they made ready to go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Mangus, a centurion, or captain, of the Roman guard stationed at Capernaum, came to the rulers of the synagogue, saying: “My faithful orderly i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ould you, therefore, go to Jesus in my behalf and beseech him to heal my servant?” The Roman captain did this because he thought the Jewish leaders would have more influence with Jesus. So the elders went to see Jesus and their spokesman said: “Teacher, we earnestly request you to go over to Capernaum and save the favorite servant of the Roman centurion, who is worthy of your notice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even built us the very synagogue wherein you have so many times spoken.”

147:1.2 (1647.4) And when Jesus had heard them, he said, “I will go with you.” And as he went with them over to the centurion's house, and before they had entered his yard, the Roman soldier sent his friends out to greet Jesus, instructing them to say: “Lord, trouble not yourself to enter my house, for I am not worthy that you should come under my roof. Neither did I think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wherefore I sent the elders of your own people. But I know that you can speak the word where you stan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am myself under the orders of others, and I have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this one go, and he goes;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s do this or do that, and they do it.”

147:1.3 (1648.1) And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turned and said to his apostles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I marvel at the belief of the gentile. Verily, verily, I say to you, I have not found so great faith, no, not in Israel.” Jesus, turning from the house, said, “Let us go hence.” And the friends of the centurion went into the house and told Mangus what Jesus had said. And from that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그 하인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며, 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예수를 동반했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 하인이 완쾌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hour the servant began to mend and was eventually restored to his normal health and usefulness.

147:1.4 (1648.2) But we never knew just what happened on this occasion. This is simply the record, and as to whether or not invisible beings ministered healing to the centurion's servant, was not revealed to those who accompanied Jesus. We only know of the fact of the servant's complete recovery.

제 2 장. 예루살렘으로 여행

3월 30일 화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사도 집단은 유월절에 참가하기 위하여 요단 계곡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4월 2일 금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그들의 본부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니에 두었다. 여리고를 통과 하면서 그들은 유다가 그의 가족의 친구의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러 잠시 멈추었다. 유다가 잉여금을 소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이 저축금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 바로 전에 그 마지막이고 사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행에서 그들이 다시 여리고를 지날 때까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별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 없이 여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베다니에서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가깝고 먼 곳으로부터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위안 받기 위해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는 거의 쉴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겟세마네에 천막을 쳤으며, 주(主)는 그에게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베다니와 겟세마네를 왕래하였다. 사도 집단이 거의 삼 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대중 설교도 하지 말고, 오직 사적인 가르침과 개인적 일만 하라고 명하였다.

베다니에서 그들은 조용히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예수와 12사도 모두가 희생물이 없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요한의 사도들은 유월절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아브너와 요한을 믿었던 초기 신도(信徒)들과 축제일을 지켰다. 이것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도들과 보내신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

예수와 12사도들이 가버나움으로 떠났을 때, 요한의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아브너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지역에 남아 조용히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였으며, 한편 예수와 12사도들은 일을 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다.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하여 파견하기 바로 전까지는, 그 24명이 다 함

2. THE JOURNEY TO JERUSALEM

147:2.1 (1648.3) Early on the morning of Tuesday, March 30, Jesus and the apostolic party started on their journey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going by the route of the Jordan valley. They arrived on the afternoon of Friday, April 2, and established their headquarters, as usual, at Bethany. Passing through Jericho, they paused to rest while Judas made a deposit of some of their common funds in the bank of a friend of his family. This was the first time Judas had carried a surplus of money, and this deposit was left undisturbed until they passed through Jericho again when on that last and eventful journey to Jerusalem just before the trial and death of Jesus.

147:2.2 (1648.4) The party had an uneventful trip to Jerusalem, but they had hardly got themselves settled at Bethany when from near and far those seeking healing for their bodies, comfort for troubled minds, and salvation for their souls, began to congregate, so much so that Jesus had little time for rest. Therefore they pitched tents at Gethsemane, and the Master would go back and forth from Bethany to Gethsemane to avoid the crowds which so constantly thronged him. The apostolic party spent almost three weeks at Jerusalem, but Jesus enjoined them to do no public preaching, only private teaching and personal work.

147:2.3 (1648.5) At Bethany they quietly celebrated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Jesus and all of the twelve partook of the bloodless Passover feast. The apostles of John did not eat the Passover with Jesus and his apostles; they celebrated the feast with Abner and many of the early believers in John's preaching. This was the second Passover Jesus had observed with his apostles in Jerusalem.

147:2.4 (1648.6) When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or Capernaum, the apostles of John did not return with them. Under the direction of Abner they remained in Jerusalem and the surrounding country, quietly laboring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while Jesus and the twelve returned to work in Galilee. Never again were the twenty-four

게 하는 경우는 다시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들은 협조적이었으며, 그들이 의견을 달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감정들을 지속시켜 갔다.

제 3 장. 벳세다의 연못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안식일 오후에 주(主)와 사도들이 성전 봉사예배에 막 참석하려 했을 때,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문 중의 하나를 통하여 밖으로 안내하여, 벳세다라고 불리는 연못으로 인도하였다. 이 연못 주위에는 다섯 개의 행각(行閣)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큰 집단이 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 이곳은 온천이었는데, 불그스레한 색의 물이 연못 아래에 있는 바위 동굴에 축적되어진 공기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끓어오르곤 하였다. 이러한 주기적인 온수의 소용돌이를 많은 이들은 초자연적인 영향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물이 움직인 직후에 처음으로 물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이 성행하였다.

사도들은 예수가 지시한 제약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이 특히 더 이 제약에 반항적이었다. 그는 고난당하는 무리들의 광경이 어찌면 주(主)의 연민을 일으켜 그를 감동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찌면 그가 치료의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예루살렘은 경탄할 것이고, 곧 왕국 복음 안에서 그들을 믿음의 승리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그 연못으로 모시고 갔던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이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길로부터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선포 대신에, 경이로운 일들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 병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들을 해주겠다.”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말쌈하였다: “여기 있는 너희들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의 그릇된 삶으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 속에서 여기에 모여 있다. 너희들 중에서 일부는 살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 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오류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다. 한편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 현재에서의 신체장애들과 불완전한 조건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 역시 일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all together until a short time before the commissioning and sending forth of the seventy evangelists. But the two groups were co-operative, and notwithstanding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the best of feelings prevailed.

3. AT THE POOL OF BETHESDA

147:3.1 (1649.1) The afternoon of the second Sabbath in Jerusalem, as the Master and the apostles were about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services, John said to Jesus, “Come with me, I would show you something.” John conducted Jesus out through one of the Jerusalem gates to a pool of water called Bethesda. Surrounding this pool was a structure of five porches under which a large group of sufferers lingered in quest of healing. This was a hot spring whose reddish-tinged water would bubble up at irregular intervals because of gas accumulations in the rock caverns underneath the pool. This periodic disturbance of the warm waters was believed by many to be due to supernatural influences, and it was a popular belief that the first person who entered the water after such a disturbance would be healed of whatever infirmity he had.

147:3.2 (1649.2) The apostles were somewhat restless under the restrictions imposed by Jesus, and John, the youngest of the twelve, was especially restive under this restraint. He had brought Jesus to the pool thinking that the sight of the assembled sufferers would make such an appeal to the Master's compassion that he would be moved to perform a miracle of healing, and thereby would all Jerusalem be astounded and presently be won to believ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Said John to Jesus: “Master, see all of these suffering ones; is there nothing we can do for them?” And Jesus replied: “John, why would you tempt me to turn aside from the way I have chosen? Why do you go on desiring to substitute the working of wonders and the healing of the sick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eternal truth? My son, I may not do that which you desire, but gather together these sick and afflicted that I may speak words of good cheer and eternal comfort to them.”

147:3.3 (1649.3) In speaking to those assembled, Jesus said: “Many of you are here, sick and afflicted, because of your many years of wrong living. Some suffer from the accidents of time, others as a result of the mistakes of their forebears, while some of you struggle under the handicaps of the imperfect conditions of your temporal existence. But my Father works, and I would work, to improve your earthly state but more especially to insure your eternal estate. None of us can do much to change the difficulties of life unless we discover the Father in heaven so wills.

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삶의 어려움을 바꿀 수는 거의 없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영원한 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희의 육신의 병이 모두 고쳐진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경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적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도덕적인 허약함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큰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공의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왕국 복음을 듣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믿는 자들은 심판과 죽음을 지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부활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다.”

듣고 있던 많은 자들이 왕국 복음을 믿었다. 고난당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소생하여서, 그들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졌다고 전파하고 다녔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 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우울하고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왔던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향유하게 되었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 고통 받던 이 사람은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 희생자였기 때문에, 회복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행해야만 했던 한가지 일—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관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요한에게 말씀하였다: “사제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병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였다고 꼬투리를 잡기 전에, 여기를 떠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동행자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들 모두는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곧 돌아갔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벳세다의 못에 갔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제 4 장. 삶의 규칙

같은 날인 이 안식일에 예수와 12사도들 그리고 신도들의 집단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정원에서 불 옆에 모여 있었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주(主)여, 우리에게 남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일생의 옛 원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에

After all, we are all beholden to do the will of the Eternal. If you could all be healed of your physical afflictions, you would indeed marvel, but it is even greater that you should be cleansed of all spiritual disease and find yourselves healed of all moral infirmities. You are all God's children; you are the sons of the heavenly Father. The bonds of time may seem to afflict you, but the God of eternity loves you. And when the time of judgment shall come, fear not, you shall all find, not only justice, but an abundance of mercy. Verily, verily, I say to you: He who hears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believes in this teaching of sonship with God, has eternal life; already are such believers passing from judgment and death to light and life. And the hour is coming in which even those who are in the tombs shall hear the voice of the resurrection.”

147:3.4 (1649.4) And many of those who heard believed the gospel of the kingdom. Some of the afflicted were so inspired and spiritually revived that they went about proclaiming that they had also been cured of their physical ailments.

147:3.5 (1649.5) One man who had been many years downcast and grievously afflicted by the infirmities of his troubled mind, rejoiced at Jesus' words and, picking up his bed, went forth to his home, even though it was the Sabbath day. This afflicted man had waited all these years for *somebody* to help him; he was such a victim of the feeling of his own helplessness that he had never once entertained the idea of helping himself which proved to be the one thing he had to do in order to effect recovery — take up his bed and walk.

147:3.6 (1650.1) Then said Jesus to John: “Let us depart ere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ome upon us and take offense that we spoke words of life to these afflicted ones.” And they returned to the temple to join their companions, and presently all of them departed to spend the night at Bethany. But John never told the other apostles of this visit of himself and Jesus to the pool of Bethesda on this Sabbath afternoon.

4. THE RULE OF LIVING

147:4.1 (1650.2) On the evening of this same Sabbath day, at Bethany, while Jesus, the twelve, and a group of believers were assembled about the fire in Lazarus's garden, Nathaniel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although you have taught us the positive version of the old rule of life, instructing us that we should do to others as we wish them to do to us, I do not fully discern how we can always abide by such an injunction. Let me illustrate my

기꺼이 어울리고자 찾아다니는 사악한 호색한(好色漢)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악을-의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靈)으로 난 자로서 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납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내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나의 가르침을 악한-행위의 용기를 고무하는 허가증으로 왜곡하도록 유혹당할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주(主)께서 말을 마치시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러나 주(主)여,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판단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가 말씀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는 네가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듯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나의 일상의 가르침에 대해, 네가 그렇게 자주 진정으로 하는 영적 해석에 실패하는 것에 실망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이 가르침, 삶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 부가되어있는 여러 다른 차원의 의미들에 관해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1. 육신의 차원. 그러한 순전히 이기적이고 호색적인 해석은 너의 질문에서의 가정에 의해 잘 예증될 것이다.

"2. 감정의 차원. 이 차원은 육신의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며, 동정심과 연민이 이러한 삶의 원칙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강화한다는 것들의 의미한다.

"3. 마음의 차원. 마음의 이성(理性)과 체험의 지능이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원칙이 그렇게, 심오한 자아-존중의 고결성으로 체현된 최고의 이상주의에 조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훌륭한 판단이 명령한다.

"4. 형제같은 사랑의 차원. 자신의 형제들의 안녕에 사심-없는 헌신을 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차원이 발견된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의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의 형제신분을 인식함으로써 성장하여 나오는, 전심을 다하는 사회적 봉사의 이러한 더욱 높은 경지에서, 일생의 이 기본적인 원

contention by citing the example of a lustful man who thus wickedly looks upon his intended consort in sin. How can we teach that this evil-intending man should do to others as he would they should do to him?"

147:4.2 (1650.3) When Jesus heard Nathaniel's question, he immediately stood upon his feet and, pointing his finger at the apostle, said: "Nathaniel, Nathaniel! What manner of thinking is going on in your heart? Do you not receive my teachings as one who has been born of the spirit? Do you not hear the truth as men of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When I admonished you to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I spoke to men of high ideals, not to those who would be tempted to distort my teaching into a license for the encouragement of evil-doing."

147:4.3 (1650.4) When the Master had spoken, Nathaniel stood up and said: "But, Master, you should not think that I approve of such an interpretation of your teaching. I asked the question because I conjectured that many such men might thus misjudge your admonition, and I hoped you would give us further instruction regarding these matters." And then when Nathaniel had sat down, Jesus continued speaking: "I well know, Nathaniel, that no such idea of evil is approved in your mind, but I am disappointed in that you all so often fail to put a genuinely spiritual interpretation upon my commonplace teachings, instruction which must be given you in human language and as men must speak. Let me now teach you concerning the differing levels of meaning attach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rule of living, this admonition to 'do to others that which you desire others to do to you':

147:4.4 (1650.5) "1. The level of the flesh. Such a purely selfish and lustful interpretation would be well exemplified by the supposition of your question.

147:4.5 (1650.6) "2. The level of the feelings. This plane is one level higher than that of the flesh and implies that sympathy and pity would enhance one's interpretation of this rule of living.

147:4.6 (1650.7) "3. The level of mind. Now come into action the reason of mind and the intelligence of experience. Good judgment dictates that such a rule of living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onance with the highest idealism embodied in the nobility of profound self-respect.

147:4.7 (1651.1) "4. The level of brotherly love. Still higher is discovered the level of unselfish devotion to the welfare of one's fellows. On this higher plane of wholehearted social service growing ou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consequent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칙의 새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5. 도덕적 차원. 그런 다음에 너희가 해석에서의 참된 철학적 차원을 달성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릇됨에 대하여 실제 통찰력을 가질 때, 인간 관계의 영원한 어울림을 감지할 때, 어떤 고결하고, 이상적이고, 현명하고 그리고 편견 없는 제 삼자가 너희 일생 상황에 대한 조절에서의 너희 개인적 문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령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리라 너희가 상상하는 대로, 너희는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6. 영적 차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일생의 원칙에서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재촉하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차원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 관계에 대한 우주의 이상(理想)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최극 욕망이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때에, 모든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때처럼 예수가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물러가신 이후에도 한동안 주(主)의 말을 놓고 토론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은 자신의 질문에서의 영을 예수가 오해하였다는 자신의 추측으로부터 회복하기까지 더디었지만, 다른 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적인 동료 사도가 생각을-촉발시키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졌었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제 5 장.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하다

시몬은 비록 유대인의 산헤드린 의원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건성으로 믿는 신도였는데, 심한 비난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예수와 그의 개인적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손님 초대 만찬에 주(主)를 지켜 보아왔고, 그의 가르침과 특히 그의 개인성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 부유한 바리새인들은 자선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박애정신에 관해 홍보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들이 어떤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에 나팔까지 불려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저명인사를 위한 만찬을 베풀 때, 심지어는 거리의 거지들까지도 들어오도록 그 집의 문들을 열어 놓았고, 거지들은 식사하는 자들의 의자들 뒤에서 방의 벽을 따라 둘러서서, 손님들이 그들에게 던져 줄지도 모르는 음식 조각들을 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man, there is discovered a new and far more beautiful interpretation of this basic rule of life.

147:4.8 (1651.2) “5. The moral level. And then when you attain true philosophic levels of interpretation, when you have real insight into the rightness and wrongness of things, when you perceive the eternal fitness of human relationships, you will begin to view such a problem of interpretation as you would imagine a high-minded, idealistic, wise, and impartial third person would so view and interpret such an injunction as applied to your personal problems of adjustment to your life situations.

147:4.9 (1651.3) “6. The spiritual level. And then last, but greatest of all, we attain the level of spirit insight and spiritual interpretation which impels us to recognize in this rule of life the divine command to treat all men as we conceive God would treat them. That is the universe ideal of human relationships. And this is your attitude toward all such problems when your supreme desire is ever to do the Father's will. I would, therefore, that you should do to all men that which you know I would do to them in like circumstances.”

147:4.10 (1651.4) Nothing Jesus had said to the apostles up to this time had ever more astonished them. They continued to discuss the Master's words long after he had retired. While Nathaniel was slow to recover from his supposition that Jesus had misunderstood the spirit of his question, the others were more than thankful that their philosophic fellow apostle had had the courage to ask such a thought-provoking question.

5. VISITING SIMON THE PHARISEE

147:5.1 (1651.5) Though Simon was not a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he was an influential Pharisee of Jerusalem. He was a halfhearted believer, and notwithstanding that he might be severely criticized therefor, he dared to invite Jesus and his personal associates, Peter, James, and John, to his home for a social meal. Simon had long observed the Master and was much impressed with his teachings and even more so with his personality.

147:5.2 (1651.6) The wealthy Pharisees were devoted to almsgiving, and they did not shun publicity regarding their philanthropy. Sometimes they would even blow a trumpet as they were about to bestow charity upon some beggar. It was the custom of these Pharisees, when they provided a banquet for distinguished guests, to leave the doors of the house open so that even the street beggars might come in and, standing around the walls of the room behind the couches of the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시몬의 집에서 열린 이 날 만찬에 거리로부터 들어온 자들 중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최근에 신도가 된 사람이었다. 이 여자는 전에 이방인의 성전 뜰 가까이에서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소위 고급 매춘 장소를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예루살렘 전역에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좋지 못한 사업을 그만두었고, 자기에게 고용되었던 대다수의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었고, 머리를 내리도록—매춘부의 표시를—강요받고 있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큰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은 예수님의 뒤에 서 있다가, 그가 음식을 들면서 소파에 기댈 때, 그녀의 감사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향유 바르기를 끝마친 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였다.

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녀가 악명 높은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크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였다: “어느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모두 탕감하여 주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고 여자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였다: “시몬아, 이 여자를 잘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초대된 손님으로 들어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감사를 표시하는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영접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 여인은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단지 이것은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 더 사랑하도록 그녀를 이끈 것이다. 그렇지만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적은 자는 종종 사랑하지만 적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너는 내 죄를 정말로 회개하였으며, 그것들은 용서를 받았다. 지각없고 불친절한 네 친구들의 태도로 인해 낙망하지 말고, 하늘의 왕국의 기쁨과 혜택을 누리면서 가거라.”

diners, be in position to receive portions of food which might be tossed to them by the banqueters.

147:5.3 (1651.7) On this particular occasion at Simon's house, among those who came in off the street was a woman of unsavory reputation who had recently become a believer in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is woman was well known throughout all Jerusalem as the former keeper of one of the so-called high-class brothels located hard by the temple court of the gentiles. She had, on accepting the teachings of Jesus, closed up her nefarious place of business and had induced the majority of the women associated with her to accept the gospel and change their mode of living; notwithstanding this, she was still held in great disdain by the Pharisees and was compelled to wear her hair down — the badge of harlotry. This unnamed woman had brought with her a large flask of perfumed anointing lotion and, standing behind Jesus as he reclined at meat, began to anoint his feet while she als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of gratitude, wiping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when she had finished this anointing, she continued weeping and kissing his feet.

147:5.4 (1652.1) When Simon saw all this, he said to himself: “This man, if he were a prophet, would have perceived who and what manner of woman this is who thus touches him; that she is a notorious sinner.” And Jesus, knowing what was going on in Simon's mind, spoke up, saying: “Simon, I have something which I would like to say to you.” Simon answered, “Teacher, say on.” Then said Jesus: “A certain wealthy moneylender had two debtors. The one owed him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Now, when neither of them had wherewith to pay, he forgave them both. Which of them do you think, Simon, would love him most?” Simon answered, “He, I suppose, whom he forgave the most.” And Jesus said, “You have rightly judged,” and pointing to the woman, he continued: “Simon, take a good look at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as an invited guest, yet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This grateful woman has washed my feet with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You gave me no kiss of friendly greeting, but this woman, ever since she came in,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My head with oil you neglected to anoint,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precious lotions. And what is the meaning of all this? Simply that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and this has led her to love much. But those who have received but little forgiveness sometimes love but little.” And turning around toward the woman, he took her by the hand and, lifting her up, said: “You have indeed repented of your sins, and they are forgiven. Be not discouraged by the thoughtless and unkind attitude of your fellows; go on in the joy and liberty of the kingdom of heaven.”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던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을 듣자, 더욱 더 놀랐으며 자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죄까지도 사하는가?”라고 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예수가 떠나기 위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몬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네 가슴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찢기는지, 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부심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너의 가슴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빛에 따르고, 이미 찾아온 왕국 복음이 초대받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한 너의 손님의 가슴속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비교될 수도 있는, 그렇게 영과 마음의 강력한 변환을 너의 일생의 정거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가장 천박한 자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사람 중의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인에게 작별을 고한 후, 나머지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겟세마네 정원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바로 그 날 저녁에 예수는 기억할 만한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지위에서의 상대적인 가치와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향한 영원한 상승으로의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상들을 향하여 진보할 것이 확실하다. 처음에는 그 아이는 참으로 천천히 진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진보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진보의 신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확실성이다. 너희의 실제적인 성취가, 너희의 진보가 하느님 쪽으로 있다는 그 방향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너희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욱 중요하다.

“너희 중에서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그 변환된 여자는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선의의 친지들보다 상당히 아래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이, 의미 없는 의례적인 예배봉사로써 반복적이고 속이는 집단의, 망상의 헛된 진보에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절대적인 진실로서 하느님을 향하여 길고도 사건 많은 추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하늘로 향해 가는 그녀의 길이 영적 자부심이나 도덕적 자아-만족으로 막혀 있지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시몬보다 하느님에게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그녀의 혼은 진보하려는 움직임 속에 있다; 그녀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의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 너희 중의 일부는 혼과 영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높은 곳에 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신앙을

147:5.5 (1651.9) When Simon and his friends who sat at meat with him heard these words, they were the more astonished, and they began to whisper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man that he even dares to forgive sins?” And when Jesus heard them thus murmuring, he turned to dismiss the woman, saying, “Woman, go in peace; your faith has saved you.”

147:5.6 (1651.10) As Jesus arose with his friends to leave, he turned to Simon and said: “I know your heart, Simon, how you are torn betwixt faith and doubts, how you are distraught by fear and troubled by pride; but I pray for you that you may yield to the light and may experience in your station in life just such mighty transformations of mind and spirit as may be comparable to the tremendous changes which the gospel of the kingdom has already wrought in the heart of your unbidden and unwelcome guest. And I declare to all of you that the Father has opened the doors of the heavenly kingdom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enter, and no man or association of men can close those doors even to the most humble soul or supposedly most flagrant sinner on earth if such sincerely seek an entrance.” And Jesus, with Peter, James, and John, took leave of their host and went to join the rest of the apostles at the camp in the garden of Gethsemane.

147:5.7 (1653.1) That same evening Jesus made the long-to-be-remembered address to the apostles regarding the relative value of status with God and progress in the eternal ascent to Paradise. Said Jesus: “My children, if there exists a true and living connection between the child and the Father, the child is certain to progress continuously toward the Father’s ideals. True, the child may at first make slow progress, but the progress is none the less sure.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rapidity of your progress but rather its certainty. Your actual achievement is not so important as the fact that the *direction* of your progress is Godward. What you are becoming day by day is of infinitely more importance than what you are today.

147:5.8 (1653.2) “This transformed woman whom some of you saw at Simon’s house today is, at this moment, living on a level which is vastly below that of Simon and his well-meaning associates; but while these Pharisees are occupied with the false progress of the illusion of traversing deceptive circles of meaningless ceremonial services, this woman has, in dead earnest, started out on the long and eventful search for God, and her path toward heaven is not blocked by spiritual pride and moral self-satisfaction. The woman is, humanly speaking, much farther away from God than Simon, but her soul is in progressive motion; she is on the way toward an eternal goal. There are present in this woman tremendous spiritual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Some of you may not

통하여 하느님을 향해 위로 열려있는 삶의 길에서, 매일 같이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를 위한 무궁한 가능성들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에서의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주제 넘는 가정(假定)을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경고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죄를 묵인해주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험잡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가 설명을, 하느님이 마치,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협력하여 지각없는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을 에워싸는, 그래서 어릴 때에 자신의 친 자손의 비도덕성과 비행에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현명치 못하고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들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도덕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자아-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그러한 행동과 실천들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실천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예수가 자신의 사도들과 최종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까지, 소수가 모인 많은 다른 회합들과 연회 석상에, 예루살렘에의 높고 낮은 사람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참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왕국 복음을 믿게 되었으며, 그들은 나중에 왕국에 대한 관심을 육성시키려고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서 남아 있었던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제 6 장. 가버나움으로 돌아감

4월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그들의 베다니 본부를 떠나, 여리고와 요단을 경유하여 가버나움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사제들과 유대 종교 영도자들은 예수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비밀 회담을 열었다. 그들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그것의 방법론에서 합의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것처럼 정부가 예수를 처벌해 주기 바랐으나, 예수가 그의 일을 너무나 잘 수행시켜서 그의 설교는 로마 관리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 날 열렸던 회담에서,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책임으로 체포되어서 최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여섯 명의 비밀 첩자가 예수를 따라가도록 임명되었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들과 행동들

stand high in actual levels of soul and spirit, but you are making daily progress on the living way opened up, through faith, to God. There are tremendous possibilities in each of you for the future. Better by far to have a small but living and growing faith than to be possessed of a great intellect with its dead stores of worldly wisdom and spiritual unbelief.”

147:5.9 (1653.3) But Jesus earnestly warned his apostles against the foolishness of the child of God who presumes upon the Father's love. He declared that the heavenly Father is not a lax, loose, or foolishly indulgent parent who is ever ready to condone sin and forgive recklessness. He cautioned his hearers not mistakenly to apply his illustrations of father and son so as to make it appear that God is like some overindulgent and unwise parents who conspire with the foolish of earth to encompass the moral undoing of their thoughtless children, and who are thereby certainly and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delinquency and early demoralization of their own offspring. Said Jesus: “My Father does not indulgently condone those acts and practices of his children which are self-destructive and suicidal to all moral growth and spiritual progress. Such sinful practices are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147:5.10 (1653.4) Many other semiprivate meetings and banquets did Jesus attend with the high and the low, the rich and the poor, of Jerusalem before he and his apostles finally departed for Capernaum. And many, indeed, becam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ere subsequently baptized by Abner and his associates, who remained behind to foster the interests of the kingdom in Jerusalem and thereabouts.

6. RETURNING TO CAPERNAUM

147:6.1 (1653.5) The last week of April,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their Bethany headquarters near Jerusalem and began their journey back to Capernaum by way of Jericho and the Jordan.

147:6.2 (1654.1) The chief priests an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held many secret meetings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at to do with Jesus. They were all agreed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to put a stop to his teaching, but they could not agree on the method. They had hoped that the civil authorities would dispose of him as Herod had put an end to John, but they discovered that Jesus was so conducting his work that the Roman officials were not much alarmed by his preaching. Accordingly, at a meeting which was held the day before Jesus' departure for Capernaum, it was decided that he would have to be apprehended on a religious charge and be tried by the Sanhedrin.

을 관찰하여 범위반이나 신성모독 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였다. 이 여섯 유대인들은 약 30 명 정도 되는 사도 집단과 여리고에서 만났으며, 제자가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수의 추종자들 가족의 일원의 신분으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설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들 중 세 사람이 사제들과 최고 법원에 그들의 보고를 제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베드로가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아파투스 쪽으로 강 위를 거슬러 가며 이동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곧장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에 모여 있던 무리로 인하여 삼 일 동안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5월의 첫 날인 안식일 이른 아침까지는 집을 향하여 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첩자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여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고소의 물증—안식일 준수 파괴—을 잡게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바로 전에 예수는 안드레를 그의 앞으로 불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 안식일의 법적 거리인 1,000 야드만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 준수 파괴 문제를 가지고 예수와 그의 사도들을 비난할 기회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들이 좁은 길을 지날 때, 양쪽 길가에는 잘 무르익은 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도들 중에서 몇 명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익은 곡식을 뜯어서 먹었다. 여행자가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곡식을 뜯어먹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그릇된 행동이라는 그 어떤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첩자들은 이것을 예수를 힐난 할 수 있는 핑계로 삼았다. 그들이 손으로 곡식을 비비는 안드레를 보자,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안식일에 곡식을 뜯어 손으로 비비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필요한 만큼만 취하였다. 언제부터 안식일에 곡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 그러나 바리새인이 대답하였다: “곡식을 먹는 것은 아무 그릇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곡식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일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너희의 주(主)께서도 그러한 행동을 확실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하였다: “만약 곡식을 먹는 일이 잘못 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일이 너희가 허락하는 곡식을 썩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찌하여 그런 하찮은 일로 탈을 잡는가?” 안드레가 그들을 쫓아가라고 던지시 비난하자, 그들은 격분하여, 예수가 마태와 말씀하면서 걷고 있는 장소로 급히 가서 항의하면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사도들이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Therefore a commission of six secret spies was appointed to follow Jesus, to observe his words and acts, and when they had amassed sufficient evidence of lawbreaking and blasphemy, to return to Jerusalem with their report. These six Jews caught up with the apostolic party, numbering about thirty, at Jericho and, under the pretense of desiring to become disciples, attached themselves to Jesus' family of followers, remaining with the group up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second preaching tour in Galilee; whereupon three of them returned to Jerusalem to submit their repor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anhedrin.

147:6.3 (1654.2) Peter preached to the assembled multitude at the crossing of the Jordan, and the following morning they moved up the river toward Amathus. They wanted to proceed straight on to Capernaum, but such a crowd gathered here they remained three days, preaching, teaching, and baptizing. They did not move toward home until early Sabbath morning, the first day of May. The Jerusalem spies were sure they would now secure their first charge against Jesus — that of Sabbath breaking — since he had presumed to start his journey on the Sabbath day. But they were doomed to disappointment because, just before their departure, Jesus called Andrew into his presence and before them all instructed him to proceed for a distance of only one thousand yards, the legal Jewish Sabbath day's journey.

147:6.4 (1654.3) But the spies did not have long to wait for their opportunity to accuse Jesus and his associates of Sabbath breaking. As the company passed along the narrow road, the waving wheat, which was just then ripening, was near at hand on either side, and some of the apostles, being hungry, plucked the ripe grain and ate it. It was customary for travelers to help themselves to grain as they passed along the road, and therefore no thought of wrongdoing was attached to such conduct. But the spies seized upon this as a pretext for assailing Jesus. When they saw Andrew rub the grain in his hand, they went up to him and said: “Do you not know that it is unlawful to pluck and rub the grain on the Sabbath day?” And Andrew answered: “But we are hungry and rub only sufficient for our needs; and since when did it become sinful to eat grain on the Sabbath day?” But the Pharisees answered: “You do no wrong in eating, but you do break the law in plucking and rubbing out the grain between your hands; surely your Master would not approve of such acts.” Then said Andrew: “But if it is not wrong to eat the grain, surely the rubbing out between our hands is hardly more work than the chewing of the grain, which you allow; wherefore do you quibble over such trifles?” When Andrew intimated that they were quibblers, they were indignant, and rushing back to where Jesus walked along, talking to Matthew, they protested, saying: “Behold, Teacher, your apostles do that

따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그만 두라고 명령을 내리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비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진정으로 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너희가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매우 잘 기억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 사제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상의 빵을 먹고, 그가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우리의 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완결되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너희의 준비해 온 음식을 너희가 먹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 하겠느냐? 나의 선한 사람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위하여 열심인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내가 선언하건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곳에 내가 하는 말을 감시하려고 같이 있는 거라면, 나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력과 지혜 있는 말들에 경탄하였고, 당황하였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을 그들은 자신들끼리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였다.

유대의 전통들과 노예적인 의식(儀式)들에 대한 예수의 반목은 항상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행동하고 확인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主)는 부정적인 탄핵에는 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죄 짓는 자유로움으로 그들 스스로를 현혹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진리에 의해 깨우쳐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법칙을 어긴 자들이다.”

제 7 장.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감

예수와 12사도들이 타리케아로부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간 때는 5월 3일 월요일 정오경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 배로 여행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적인 첩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발견하였다.

화요일 밤에 예수가 그의 관례적인 질의 응답의 교실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 여섯 첩자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당신의 가르침에 참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라 하였고 요한도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종용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요한의 말에 관련하여 이 질문자에게 대답하였다: “결혼 잔치 집의 자

which is unlawful on the Sabbath day; they pluck, rub, and eat the grain. We are sure you will command them to cease.” And then said Jesus to the accusers: “You are indeed zealous for the law, and you do well to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but did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 that, one day when David was hungry, he and they who were with him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showbread, which it was not lawful for anyone to eat save the priests? and David also gave this bread to those who were with him. And have you not read in our law that it is lawful to do many needful things on the Sabbath day? And shall I not, before the day is finished, see you eat that which you have brought along for the needs of this day? My good men, you do well to be zealous for the Sabbath, but you would do better to guar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your fellows. I declare that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And if you are here present with us to watch my words, then will I openly proclaim that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147:6.5 (1655.1) The Pharisees were astonished and confounded by his words of discernment and wisdom. For the remainder of the day they kept by themselves and dared not ask any more questions.

147:6.6 (1655.2) Jesus' antagonism to the Jewish traditions and slavish ceremonials was always *positive*. It consisted in what he did and in what he affirmed. The Master spent little time in negative denunciations. He taught that those who know God can enjoy the liberty of living without deceiving themselves by the licenses of sinning. Said Jesus to the apostles: “Men, if you are enlightened by the truth and really know what you are doing, you are blessed; but if you know not the divine way, you are unfortunate and already breakers of the law.”

7. BACK IN CAPERNAUM

147:7.1 (1655.3) It was around noon on Monday, May 3, when Jesus and the twelve came to Bethsaida by boat from Tarichea. They traveled by boat in order to escape those who journeyed with them. But by the next day the others, including the official spies from Jerusalem, had again found Jesus.

147:7.2 (1655.4) On Tuesday evening Jesus was conducting one of his customary classes of questions and answers when the leader of the six spies said to him: “I was today talking with one of John's disciples who is here attending upon your teaching, and we were at a loss to understand why you never command your disciples to fast and pray as we Pharisees fast and as John bade his followers.” And Jesus, referring to a statement by John, answered this questioner: “Do the sons of

녀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은 그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 시절 동안에는 결혼 잔치 집 자녀들이 의심할 것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식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재단사는 헛 옷에 줄지 않은 새 천의 조각을 기우지 않는데, 그것이 젖으면 줄어들어 더욱 나쁜 틈을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데,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염려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따라서 나의 사도들은 새로운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다 너무 많은 낡은 명령을 가져오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너희의 선생을 잃은 자들은 한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의 법칙에서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하느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안을 받았고, 한편 바리새인들은 더욱 더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모든 옛 가르침들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리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청중에게 경고를 주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되고 또한 참된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도 참된 것을 받아들일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다음과 같이 쓰인 글을 기억하라: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와 견줄 수 없음이다. 새 친구는 마치 새 포도주와 같다. 만약 그것이 오래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제 8 장. 영적 선(善)의 축제

그 날 밤 일반 청중들이 돌아간 한참 후에도,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예언서로부터 인용하였다:

“왜 우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공정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가 너희의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함의 손목으로 내려친다. 너희는 너희의 음성이 높은 곳에 상달되기 위한 이런 식의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입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나?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the bridechamber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As long as the bridegroom remains with them, they can hardly fast. But the time is coming when the bridegroom shall be taken away, and during those times the children of the bridechamber undoubtedly will fast and pray. To pray is natural for the children of light, but fasting is not a part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Be reminded that a wise tailor does not sew a piece of new and unshrunk cloth upon an old garment, lest, when it is wet, it shrink and produce a worse rent. Neither do men put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lest the new wine burst the skins so that both the wine and the skins perish. The wise man puts the new wine into fresh wine skins. Therefore do my disciples show wisdom in that they do not bring too much of the old order over into the new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who have lost your teacher may be justified in fasting for a time. Fasting may be an appropriate part of the law of Moses, but in the coming kingdom the sons of God shall experience freedom from fear and joy in the divine spirit.” And when they heard these words, the disciples of John were comforted while the Pharisees themselves were the more confounded.

147:7.3 (1656.1) Then the Master proceeded to warn his hearers against entertaining the notion that all olden teaching should be replaced entirely by new doctrines. Said Jesus: “That which is old and also true must abide. Likewise, that which is new but false must be rejected. But that which is new and also true, have the faith and courage to accept. Remember it is written: ‘Forsake not an old friend, for the new is not comparable to him. As new wine, so is a new friend; if it becomes old, you shall drink it with gladness.’”

8. THE FEAST OF SPIRITUAL GOODNESS

147:8.1 (1656.2) That night, long after the usual listeners had retired, Jesus continued to teach his apostles. He began this special instruction by quoting from the Prophet Isaiah:

147:8.2 (1656.3) “‘Why have you fasted? For what reason do you afflict your souls while you continue to find pleasure in oppression and to take delight in injustice? Behold, you fast for the sake of strife and contention and to smite with the fist of wickedness. But you shall not fast in this way to make your voices heard on high.

147:8.3 (1656.4) “‘Is it such a fast that I have chosen — a day for a man to afflict his soul? Is it to bow down his head like a bulrush, to grovel in sackcloth and ashes? Will you dare to call this a fast and an acceptable day in the sight of the Lord? Is not this the fast I should choose: to loose the bonds of wickedness, to undo the knots of heavy burdens,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나의 빵을 나누어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내가 그들을 입힐 것이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가 대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약 네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리라. 아버지는 정말로 네가 주린 자에게 너의 가슴을 내어주며, 고통 받는 혼을 네가 돌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너는 물 댐 정원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황폐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은 역대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것이리라. 그들을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불리리라.”

그리고 나서 밤늦도록 예수는 사도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왕국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은 혼을 괴롭히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밝히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날의 선지자의 관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당부하였고, 그들이 이사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상(理想)을 훨씬 넘어서 진보했으면 하는 희망을 밝히셨다. 그 날 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한편 동시에 형제로서 모든 사람을 인식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

예수가 말씀을 끝내셨을 때는 새벽 두 시가 지난 후였으며, 모든 사람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to let the oppressed go free, and to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my bread with the hungry and to bring those who are homeless and poor to my house? And when I see those who are naked, I will clothe them.

147:8.4 (1656.5) ““Then shall your light break forth as the morning while your health springs forth speedily. Your righteousness shall go before you while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your rear guard. Then will you call upon the Lord, and he shall answer; you will cry out, and he shall say — Here am I. And all this he will do if you refrain from oppression, condemnation, and vanity. The Father rather desires that you draw out your heart to the hungry, and that you minister to the afflicted souls; then shall your light shine in obscurity, and even your darkness shall be as the noonday. Then shall the Lord guide you continually, satisfying your soul and renewing your strength. You shall become like a 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fail not. And they who do these things shall restore the wasted glories; they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s of many generations; they shall be called the rebuilders of broken walls, the restorers of safe paths in which to dwell.”

147:8.5 (1656.6) And then long into the night Jesus propounded to his apostles the truth that it was their faith that made them secure in the kingdom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not their affliction of soul nor fasting of body. He exhorted the apostles at least to live up to the ideas of the prophet of old and expressed the hope that they would progress far beyond even the ideals of Isaiah and the older prophets. His last words that night were: “Grow in grace by means of that living faith which grasps the fact that you are the sons of God while at the same time it recognizes every man as a brother.”

147:8.6 (1656.7) It was after two o'clock in the morning when Jesus ceased speaking and every man went to his place for sleep.

제 148 편 벳세다에서의 전도자들 훈련

⇨ 147

유랜시아 책

14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8 편 벳세다에서의 전도자들 훈련

섹션

소개

- 제 1 장. 선지자들의 새로운 학교
- 제 2 장. 벳세다 병원
- 제 3 장. 아버지의 일
- 제 4 장. 악, 죄 그리고 불의한 사악
- 제 5 장. 고통의 목적
- 제 6 장. 고통에 대한 오해—음에 대한 강연
- 제 7 장. 손 마른 사람
- 제 8 장. 벳세다에서의 마지막 주간
- 제 9 장. 중풍 병자를 고치심

PAPER 148
TRAINING EVANGELISTS AT
BETHSAIDA

SECTIONS

Introduction

- 1. A New School of the Prophets
- 2. The Bethsaida Hospital
- 3. The Father's Business
- 4. Evil, Sin, and Iniquity
- 5. The Purpose of Affliction
- 6. The Misunderstanding of Suffering — Discourse on Job
- 7.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 8. Last Week at Bethsaida
- 9. Healing the Paralytic

소개

기원후 28년 5월 3일에서 10월 3일까지 예수와 사도 집단은 벳세다에서 지내면서 세베대의 집에 거주하였다. 이 긴조한 기간 동안의 다섯 달 내내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을 따라 거대한 야영지(野營地)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커져 갔다. 진리 추구자들, 병 고침을 바라는 자들,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구성된 이 야영지에는 500 명에서부터 1,500 명까지 달하는 항상 변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천막 도시는 전반적으로 알패오 쌍둥이 형제의 도움을 받는, 다윗 세베대의 감독 아래 있었다. 그 야영지는 그것의 일반적인 관리·행정은 물론이고, 질서와 위생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것이었다. 종류가 다른 병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아인의 감독 아래에 있었는데, 그는 믿게 된 의사였다.

이 기간을 통하여 사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INTRODUCTION

^{148:0.1 (1657.1)} FROM May 3 to October 3, A.D. 28, Jesus and the apostolic party were in residence at the Zebedee home at Bethsaida. Throughout this five months' period of the dry season an enormous camp was maintained by the seaside near the Zebedee residence, which had been greatly enlarged to accommodate the growing family of Jesus. This seaside camp, occupied by an ever-changing population of truth seekers, healing candidates, and curiosity devotees, numbered from five hundred to fifteen hundred. This tented city was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David Zebedee, assisted by the Alpheus twins. The encampment was a model in order and sanitation as well as in its general administration. The sick of different types were segregated and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a believer physician, a Syrian named Elman.

^{148:0.2 (1657.2)} Throughout this period the apostles would go fishing at least one day a week, selling

해변 야영지에서 쓰이도록 다윗에게 팔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기금은 그 집단의 회계에게 맡겨졌다. 12사도들에게는 한 달에 일주일 동안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내도록 허락되었다.

안드레가 사도 활동을 전반적으로 맡아보는 것을 계속했고, 베드로는 전도자들의 학교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매일 오전에는 사도들이 전도자 집단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였고, 오후에는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가 일반 사람들을 가르쳤다. 저녁식사 후에는 일주일에 닷새 동안 사도들은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질문 교실을 수행했다. 일주일에 한번 예수가 이 질문 시간을 주관하였으며, 아직 해답을 갖지 못한 그 이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었다.

다섯 달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야영지에 다녀갔다. 로마제국의 전 지역과 유프라테스의 동쪽 지역으로부터, 관심을 가진 자들이 빈번히 참석하였다. 이것은 주(主)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길게 한 곳에 정착하면서 훌륭한 조직을 가졌던 기간이었다. 이 해에 예수의 친 가족은 나사렛이나 가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야영지는 공동 관리하는 공동체로서 수행되지 않았다. 다윗 세배대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아-지탱하는 기업으로 키우면서 이 큰 천막 도시를 끌어내었다. 항상-바뀌고 있는 이 야영지는 베드로의 전도자 훈련 학교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역할 이었다.

제 1 장. 선지자들의 새로운 학교

예수는 전도자들의 학교에 입학(入學)하려는 신청자들의 심사 위원들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를 임명하였다. 이 새로운 선지자(先知者) 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로마 세계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멀리 인도까지, 모든 종족들과 민족들이 대표되어 있었다. 이 학교는 배우기 그리고 실행하기의 계획 위에서 수행되었다. 학생들이 오전 중에 배운 것을, 오후 동안에는 해변에서 그들이 군중들에게 가르쳤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들이 허물없이 오전에 배운 것과 오후의 가르침에 대해 토의하였다.

사도 선생 각자는 왕국 복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가르쳤다. 그들은 똑같이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적 신조들의 표준화나 독단적인 형태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도는 주(主)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발표하였다. 예수는 왕국의 일들에서 개인적 체험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을 높이 사셨으며,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의 질문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다양한 복음에 대한 견해들을 조화시키고 조

their catch to David for consumption by the seaside encampment. The funds thus received were turned over to the group treasury. The twelve were permitted to spend one week out of each month with their families or friends.

148:0.3 (1657.3) While Andrew continued in general charge of the apostolic activities, Peter was in full charge of the school of the evangelists. The apostles all did their share in teaching groups of evangelists each forenoon, and both teachers and pupils taught the people during the afternoons. After the evening meal, five nights a week, the apostles conducted question classes for the benefit of the evangelists. Once a week Jesus presided at this question hour, answering the holdover questions from previous sessions.

148:0.4 (1657.4) In five months several thousand came and went at this encampment. Interested persons from every part of the Roman Empire and from the lands east of the Euphrates were in frequent attendance. This was the longest settled and well-organized period of the Master's teaching. Jesus' immediate family spent most of this time at either Nazareth or Cana.

148:0.5 (1657.5) The encampment was not conducted as a community of common interests, as was the apostolic family. David Zebedee managed this large tent city so that it became a self-sustaining enterprise, notwithstanding that no one was ever turned away. This ever-changing camp was an indispensable feature of Peter's evangelistic training school.

1. A NEW SCHOOL OF THE PROPHETS

148:1.1 (1657.6) Peter, James, and Andrew were the committee designated by Jesus to pass upon applicants for admission to the school of evangelists. All the races and nationalities of the Roman world and the East, as far as India, were represented among the students in this new school of the prophets. This school was conducted on the plan of learning and doing. What the students learned during the forenoon they taught to the assembly by the seaside during the afternoon. After supper they informally discussed both the learning of the forenoon and the teaching of the afternoon.

148:1.2 (1658.1) Each of the apostolic teachers taught his own view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y made no effort to teach just alike; there was no standardized or dogmatic formulation of theological doctrines. Though they all taught the *same truth*, each apostle presented his own personal 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teaching. And Jesus upheld this presentation of the diversity of personal experience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unfailingly harmonizing and co-ordinating these many and

화-협동시키는 일을 반드시 진행하였다.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인적 해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영향력이 전도자 학교의 신학을 많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베드로 다음으로는 야고보 세베대가 개인적 영향을 많이 발휘하였다.

이 5개월 동안 해변에서 훈련을 받은 100여명이 넘는 전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으로부터 (아브너 그리고 요한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중의 70명의 복음 선생들과 설교자들이 배출되었다. 전도자들의 학교는 12사도들이 했던 같은 등급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쳤고 설교를 했었지만, 이 전도자들은, 나중에 예수가 70명의 왕국 메신저들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곳에서 해 질 무렵에 치유를 받았던 큰 무리들 중에서 단지 7명만이 이 전도자 학생들에 포함되었다. 가버나움의 유명 인사의 아들은 베드로의 학교에서 복음 봉사를 위해 훈련 받은 자들 중의 하나였다.

제 2 장. 벳세다 병원

해변의 야영지와 관련하여, 시리아인 의사인 엘만이 25명의 젊은 여자와 12명의 남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네 달 동안 왕국의 첫 병원이라고 여겨져야 될 기관을 조직하여 수행해 갔다. 천막 도시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이 병원에서 그들은 기도와 신앙을 장려하는 영적 실천은 물론이고, 이미 알고 있는 물질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였다. 예수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 야영지로 병든 자들을 방문하였고, 고난당하는 자들 각자와 개인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아는 한,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였던 1,00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거나 나음을 입어서 그 진료소를 떠났지만, 초자연적인 치유가 발생하는 기적에 의해서 나온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혜택을 입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고쳤다고 알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엘만의 환자들을 위하여 한 그의 사명 활동과 관련되어 효과를 보았던, 많은 치유들은 진정으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신앙으로-지배된 개인들의 기대감의 체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영의 변환이었을 뿐이었다고 통고받았으며, 그들이 강하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개인성의 즉각적이고 영감어린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 활동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걱정을 없애 주었던 것이었다.

엘만과 그의 연관-동료들은 “악령들에게 사로

divergent views of the gospel at his weekly question hours. Notwithstanding this great degree of personal liberty in matters of teaching, Simon Peter tended to dominate the theology of the school of evangelists. Next to Peter, James Zebedee exerted the greatest personal influence.

148:1.3 (1658.2) The one hundred and more evangelists trained during this five months by the seaside represented the material from which (excepting Abner and John's apostles) the later seventy gospel teachers and preachers were drawn. The school of evangelists did not have everything in common to the same degree as did the twelve.

148:1.4 (1658.3) These evangelists, though they taught and preached the gospel, did not baptize believers until after they were later ordained and commissioned by Jesus as the seventy messengers of the kingdom. Only seven of the large number healed at the sundown scene at this place were to be found among these evangelistic students. The nobleman's son of Capernaum was one of those trained for gospel service in Peter's school.

2. THE BETHSAIDA HOSPITAL

148:2.1 (1658.4) In connection with the seaside encampment, Elman, the Syrian physician, with the assistance of a corps of twenty-five young women and twelve men, organized and conducted for four months what should be regarded as the kingdom's first hospital. At this infirmary, located a short distance to the south of the main tented city, they treated the sick in accordance with all known material methods as well as by the spiritual practices of prayer and faith encouragement. Jesus visited the sick of this encampment not less than three times a week and made personal contact with each sufferer. As far as we know, no so-called miracles of supernatural healing occurred among the one thousand afflicted and ailing persons who went away from this infirmary improved or cured.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these benefited individuals ceased not to proclaim that Jesus had healed them.

148:2.2 (1658.5) Many of the cures effected by Jesus in connection with his ministry in behalf of Elman's patients did, indeed, appear to resemble the working of miracles, but we were instructed that they were only just such transformations of mind and spirit as may occur in the experience of expectant and faith-dominated persons who are under the immediate and inspirational influence of a strong, positive, and beneficent personality whose ministry banishes fear and destroys anxiety.

148:2.3 (1658.6) Elman and his associates

잡힘"에 관한 진리를 이 병자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했으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 착란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나 몸속에 소위 더러운 영이라 불리는 것이 거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치료의 기법이냐, 알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제시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예수는 유란시아 육신화의 모험을 착수할 때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로부터 받았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돌보던 사람들은, 예수가 병든 자들과 고난 받는 자들의 신앙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그 방법을 지켜봄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

그 야영지는 확실히 병이 늘어나는 계절이 다가오기 바로 전에 해산되었다.

제 3 장. 아버지의 일

이 기간 내내, 예수가 야영지에서 대중 예배 봉사를 수행한 것은 12번이 되지 않았으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두 번째 갈릴리 대중 설교 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오직 한번 설교하였다.

전도자들의 벧세다 훈련 야영지 시절 동안만큼 주(主)가 그렇게 많이 혼자 지내신 기간은, 세례를 받은 이후로 없었던 일이었다. 사도들 중의 누군가가, 예수께 어찌하여 그가 그들로부터 그렇게 자주 떠나가 있는냐고 대담하게 물을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자기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자리를 비우는 이들 기간 동안에, 예수는 사도들 중 오직 두 사람들만을 동반하였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100명이 넘는 숫자의 새로운 전도자 후보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동행자로서의 배정에서 해제하여 주었다. 주(主)가 아버지의 일에 관련하여 언덕으로 가려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는 자유로움에 있음직한 사도들 중에서 아무나 두 사람을 함께 가자고 부르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열두 사람은 각자 예수와 가까운 관계적-연합과 그리고 친밀한 접촉을 할 기회를 누렸다.

이 기록의 목적으로 계시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덕에서 단독으로 있던 이들 여러 기간 동안에, 주(主)가 우주 관련자들을 맡고 있는 자신의 우두머리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집행적인 관계적-연합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도록 인도되어 왔다. 그가 세례를 받았던 무

endeavored to teach the truth to these sick ones concerning the "possession of evil spirits," but they met with little success. The belief that physical sickness and mental derangement could be caused by the dwelling of a so-called unclean spirit in the mind or body of the afflicted person was well-nigh universal.

148:2.4 (1659.1) In all his contact with the sick and afflicted, when it came to the technique of treatment or the revelation of the unknown causes of disease, Jesus did not disregard the instructions of his Paradise brother, Immanuel, given ere he embarked upon the venture of the Urantia incarnation. Notwithstanding this, those who ministered to the sick learned many helpful lessons by observing the manner in which Jesus inspired the faith and confidence of the sick and suffering.

148:2.5 (1659.2) The camp disbanded a short time before the season for the increase in chills and fever drew on.

3. THE FATHER'S BUSINESS

148:3.1 (1659.3) Throughout this period Jesus conducted public services at the encampment less than a dozen times and spoke only once in the Capernaum synagogue, the second Sabbath before their departure with the newly trained evangelists upon their seco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148:3.2 (1659.4) Not since his baptism had the Master been so much alone as during this period of the evangelists' training encampment at Bethsaida. Whenever any one of the apostles ventured to ask Jesus why he was absent so much from their midst, he would invariably answer that he was "about the Father's business."

148:3.3 (1659.5) During these periods of absence, Jesus was accompanied by only two of the apostles. He had released Peter, James, and John temporarily from their assignment as his personal companions that they might als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raining the new evangelistic candidates, numbering more than one hundred. When the Master desired to go to the hills about the Father's business, he would summon to accompany him any two of the apostles who might be at liberty. In this way each of the twelve enjoyed an opportunity for close association and intimate contact with Jesus.

148:3.4 (1659.6) It has not been reveal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rd, but we have been led to infer that the Master, during many of these solitary seasons in the hills, was in direct and executive association with many of his chief directors of universe affairs. Ever since about the time of his

럽 이후로는 내내, 우리 우주의 이 육신화된 주권자는 우주 관리-행정에서의 어떤 일정 위상의 지도에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의식하면서 활동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있는 의견은, 그가 지상의 관련사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감소하였던 이 몇 주 동안, 그의 즉각적인 연관-동료들에게 제시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광대한 우주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저들 높은 영 지능존재들을 지도하는 일에 그가 종사되어 있었고, 그리고 인간 예수는 그러한 활동을 자신의 몫에서 “그의 아버지의 일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여러 번, 예수가 여러 시간을 혼자 있었을 때, 그러나 그의 사도들 가운데 둘이 가까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의 모습이 재빠르게 그리고 다채롭게 변화를 겪는 것을 관찰하였다. 주(主)와 교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천상존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시활동도 그들은 관찰하지 못했고, 나중에 어떤 기회에서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목격하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었다.

제 4 장. 악, 죄 그리고 불의한 사악

매주 이들 저녁은 세베대의 집 정원의 좁고 외로운 구석에서,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대화를 가지는 것이 예수의 버릇이었다. 이러한 사적으로 하는 저녁 대화의 하나에서 어느 날 도마가 주(主)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사람이 영에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악한 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 태어남이 필요합니까? 주(主)여, 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러한 질문들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과 악한 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악하게 불의한 자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부르는 그는 자아-사랑에 빠진 아들, 나의 아버지와 그의 충성스런 아들들의 통치에 대항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반역을 행했던 높은 행정-관리자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들 죄 많은 반역자들을 없앴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우주를 향하는 이들 전혀 다른 태도를 명확하게 해 두어라. 아버지의 뜻에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악(惡)은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무의식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악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불완전성을 재는 척도와 같은 것이다.

“죄는 신성한 법, 아버지의 뜻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그리고 숙고하여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죄는 신성하게 이끌리고 영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반항하고 있음을 재는 척도이다.

“사악은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악은 개인성의 생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계획과 아들의 자비로운 구원의 사명활동

baptism this incarnated Sovereign of our universe had become increasingly and consciously active in the direction of certain phases of universe administration. And we have always held the opinion that, in some way not revealed to his immediate associates, during these weeks of decreased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earth he was engaged in the direction of those high spirit intelligences who were charged with the running of a vast universe, and that the human Jesus chose to designate such activities on his part as being “about his Father’s business.”

148:3.5 (1659.7) Many times, when Jesus was alone for hours, but when two of his apostles were near by, they observed his features undergo rapid and multitudinous changes, although they heard him speak no words. Neither did they observe any visible manifestation of celestial beings who might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ir Master, such as some of them did witness on a subsequent occasion.

4. EVIL, SIN, AND INIQUITY

148:4.1 (1659.8) It was the habit of Jesus two evenings each week to hold special converse with individuals who desired to talk with him, in a certain secluded and sheltered corner of the Zebedee garden. At one of these evening conversations in private Thomas asked the Master this question: “Why is it necessary for men to be born of the spirit in order to enter the kingdom? Is rebirth necessary to escape the control of the evil one? Master, what is evil?” When Jesus heard these questions, he said to Thomas:

148:4.2 (1660.1)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evil with the evil one, more correctly the iniquitous one. He whom you call the evil one is the son of self-love, the high administrator who knowingly went into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rule of my Father and his loyal Sons. But I have already vanquished these sinful rebels. Make clear in your mind these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Father and his universe. Never forget these laws of relation to the Father’s will:

148:4.3 (1660.2) “Evil is the unconscious or unintended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Evil is likewise the measure of the imperfectness of obedience to the Father’s will.

148:4.4 (1660.3) “Sin is the conscious, knowing, and deliberate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Sin is the measure of unwillingness to be divinely led and spiritually directed.

148:4.5 (1660.4) “Iniquity is the willful, determined, and persistent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 the Father’s will. Iniquity is the measure of the continued rejection of the Father’s loving plan of

에 대한 지속적인 거절의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본성적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필사 사람은 선천적인 악한 경향에 지배되지만, 습성의 그러한 본성적 불완전성은 죄도 또한 사악한 불의도 아니다. 필사 사람이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긴 상승 과정을 그곳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본성적 자질에서 불완전하거나 또는 부분적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에 속박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의 길과 사악한 불의의 일생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악의 자녀가 아니다. 악은 이 세상의 자연적 질서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지만, 죄는 영적 빛에서 비친한 어두움으로 빠진 자들이 이 세상으로 가져 온 의도적인 반역의 태도이다.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들과 페르시아인의 실수들 때문에 혼동되어 있다. 너는 사람이 완전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그 후 죄를 지음으로 빠르게 현재의 한심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악과 죄의 관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록에서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 카인이 뚝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는가를 드러내는 기록의 의미를 어찌하여 이해하기를 거절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찌하여 피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참으로 본성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태어남—영에 의한 세례—은 악에서의 해방에 필수적이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의 아무 것도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잠재적 악의 이 선천적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이방인, 외국인, 혹은 의붓자식이 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대한 법적 양자권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모든 그러한 사상들은, 첫째로는 아버지에게 대한 너희의 오해에서 왔고, 둘째로는 사람의 기원, 본성, 운명에 대한 너희의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사람은 독실한 완전함에서 출발해서 계속하여 망각 혹은 파멸 쪽의 내리막길을 달려왔다고 가르쳤으나; 나는 이제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확실하게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있으며, 신성한 완전성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영원한 아버지의 뜻의 신성하고 영적 이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으로는 악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사악하게 불의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도마야, 성서에서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

personality survival and the Sons' merciful ministry of salvation.

148:4.6 (1660.5) “By nature, before the rebirth of the spirit, mortal man is subject to inherent evil tendencies, but such natural imperfections of behavior are neither sin nor iniquity. Mortal man is just beginning his long ascent to the perfection of the Father in Paradise. To be imperfect or partial in natural endowment is not sinful. Man is indeed subject to evil, but he is in no sense the child of the evil one unless he has knowingly and deliberately chosen the paths of sin and the life of iniquity. Evil is inherent in the natural order of this world, but sin is an attitude of conscious rebellion which was brought to this world by those who fell from spiritual light into gross darkness.

148:4.7 (1660.6) “You are confused, Thomas, by the doctrines of the Greeks and the errors of the Persians. You do not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evil and sin because you view mankind as beginning on earth with a perfect Adam and rapidly degenerating, through sin, to man's present deplorable estate. But why do you refuse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 record which discloses how Cain, the son of Adam, went over into the land of Nod and there got himself a wife? And why do you refus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record which portrays the sons of God finding wives for themselves among the daughters of men?

148:4.8 (1660.7) “Men are, indeed, by nature evil, but not necessarily sinful. The new birth — the baptism of the spirit — is essential to deliverance from evil and necessary for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none of this detracts from the fact that man is the son of God. Neither does this inherent presence of potential evil mean that man is in some mysterious way estranged from the Father in heaven so that, as an alien, foreigner, or stepchild, he must in some manner seek for legal adoption by the Father. All such notions are born, first, of your misunderstanding of the Father and, second, of your ignorance of the origin, nature, and destiny of man.

148:4.9 (1660.8) “The Greeks and others have taught you that man is descending from godly perfection steadily down toward oblivion or destruction; I have come to show that man, by entrance into the kingdom, is ascending certainly and surely up to God and divine perfection. Any being who in any manner falls short of the divine and spiritual ideals of the eternal Father's will is potentially evil, but such beings are in no sense sinful, much less iniquitous.

148:4.10 (1661.1) “Thomas, have you not read about

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 나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아들로 선택했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에 의해 불림을 받는 자들도 다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느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연적인 자녀에게 인간 아버지의 물질적 부분이 있는데 반하여, 왕국의 모든 신앙의 자녀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영적 부분이 있다.”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예수가 도마에게 말씀하였으며, 그는 대부분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도마는 이 대화를 주(主)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 5 장. 고통의 목적

정원에서 사적으로 상담하였던 다른 경우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저는 왜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치유되도록 실천하기를 거절하는지 좀 납득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세상의 그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主)가 나다니엘에게 다음의 말로 대답하였다:

“나다니엘아,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얼마나 여러 번 특정한 반역자들의 죄 많은 모험들로 인하여 망쳐졌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확립하는 것이 시작되도록 온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전의 길로 회복시키고, 사담인 자녀들을 죄와 반역의 추가된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악의 현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험이다—죄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만 한다. 사람이 신성한 뜻인 더 좋은 길에서 걸어갈 것을 끈질기게 거절한 결과로서 불필요한 고통을 그 자신위에 넘어트리고 있다. 고통은 악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것이 죄와 사악한 불의에 의해 생겨나온 것이다. 많은 예외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목격하는 고통과 고난의 광경으로 혼동되어 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한 가지는 확실한데: 아버지께서 그릇된 행동에 대한 독단적인 벌로써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완전성과 악이라는 장애는 선천적이며,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this in the Scriptures, where it is written: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I will be his Father and he shall be my son.’ ‘I have chosen him to be my son — I will be his Father.’ ‘Bring my sons from 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s of the earth; even every one who is called by my name, for I have created them for my glory.’ ‘You are the sons of the living God.’ ‘They who have the spirit of God are indeed the sons of God.’ While there is a material part of the human father in the natural child, there is a spiritual part of the heavenly Father in every faith son of the kingdom.”

148:4.11 (1661.2) All this and much more Jesus said to Thomas, and much of it the apostle comprehended, although Jesus admonished him to “speak not to the others concerning these matters until after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nd Thomas did not mention this interview until after the Master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5. THE PURPOSE OF AFFLICTION

148:5.1 (1661.3) At another of these private interviews in the garden Nathaniel asked Jesus: “Master, though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why you refuse to practice healing indiscriminately, I am still at a loss to understand why the loving Father in heaven permits so many of his children on earth to suffer so many afflictions.” The Master answered Nathaniel, saying:

148:5.2 (1661.4) “Nathaniel, you and many others are thus perplexed because you do not comprehend how the natural order of this world has been so many times upset by the sinful adventures of certain rebellious traitors to the Father’s will. And I have come to make a beginning of setting these things in order. But many ages will be required to restore this part of the universe to former paths and thus release the children of men from the extra burdens of sin and rebellion. The presence of evil alone is sufficient test for the ascension of man — sin is not essential to survival.

148:5.3 (1661.5) “But, my son, you should know that the Father does not purposely afflict his children. Man brings down upon himself unnecessary affliction as a result of his persistent refusal to walk in the better ways of the divine will. Affliction is potential in evil, but much of it has been produced by sin and iniquity. Many unusual events have transpired on this world, and it is not strange that all thinking men should be perplexed by the scenes of suffering and affliction which they witness. But of one thing you may be sure: The Father does not send affliction as an arbitrary punishment for wrongdoing. The imperfections and handicaps of evil are inherent; the penalties of

없으며, 사악한 불의에 대한 파괴하는 결말은 꺾힐 수 없다. 사람은 그가 선택한 일생의 자연스런 결과인 그러한 고통들에 대하여,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의 한 부분인 그러한 체험들에 대하여, 불평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끈질기게 그리고 변함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지능적 적응은 사람이 그의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의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다니엘아,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박차를 가하여, 복잡한 물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좀 더 잘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네가 성서를 읽으면서 혼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거기에서는 너무 자주, 무지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개인적 책임을 지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네가 무심코 또는 신중히 그러한 신성한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가 제정한 의롭고 현명한 어떤 법이 너에게 우연히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나다니엘아, 만약 네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쓰인 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그가 바로 잡아주는 것에 싫증내지도 마라, 이는 실로 아버가 그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님은 그가 바로 잡아주고 있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킵니다. 고난이 내게 좋았으니 그것은 이로 인하여 내가 신성한 계명을 배웠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영원한 하느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아래에는 영속하는 팔들이 있다.’ ‘주님은 또 압박 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요, 파란만장의 시절에 휴식의 항구이시다.’ ‘주님은 고난의 침대 위에 있는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병자를 잊지 않으신다.’ ‘아버가 자기 자녀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듯이 주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동정하신다. 그는 너희의 몸을 아신다; 너희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가난한 자의 희망이시며, 고뇌 속에 있는 궁핍한 자의 강한 힘이시며, 폭풍으로부터 피난처시며, 불같은 더위로 부터 피하는 그늘이시다.’ ‘그는 미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아무 기력없는 자에게는 강한 힘을 키워주신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한다.’ ‘내가 고난의 강물을 두루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역경의 강물이 넘쳐 너를 덮칠 때에도, 나는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심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통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라고 그가 나를 보내었다.’ ‘고통을 겪는 것 안에서 바로잡음이 있다; 고난은 티끌로

sin are inevitable; the destroying consequences of iniquity are inexorable. Man should not blame God for those afflictions which are the natural result of the life which he chooses to live; neither should man complain of those experiences which are a part of life as it is lived on this world. It is the Father's will that mortal man should work persistently and consistently toward the betterment of his estate on earth. Intelligent application would enable man to overcome much of his earthly misery.

148:5.4 (1662:1) “Nathaniel, it is our mission to help men solve their spiritual problems and in this way to quicken their minds so that they may be the better prepared and inspired to go about solving their manifold material problems. I know of your confusion as you have read the Scriptures. All too often there has prevailed a tendency to ascribe to God th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which ignorant man fails to understand. The Father is not personally responsible for all you may fail to comprehend. Do not doubt the love of the Father just because some just and wise law of his ordaining chances to afflict you because you have innocently or deliberately transgressed such a divine ordinance.

148:5.5 (1662:2) “But, Nathaniel, there is much in the Scriptures which would have instructed you if you had only read with discernment. Do you not remember that it is written: ‘My son, despise not the chastening of the Lord; neither be weary of his correction, for 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even as the father corrects the son in whom he takes delight.’ ‘The Lord does not afflict willingly.’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do I keep the law. Affliction was good for me that I might thereby learn the divine statutes.’ ‘I know your sorrows. The eternal God is your refuge, while underneath are the everlasting arms.’ ‘The Lord also is a refuge for the oppressed, a haven of rest in times of trouble.’ ‘The Lord will strengthen him upon the bed of affliction; the Lord will not forget the sick.’ ‘As a father shows compassion for his children, so is the Lord compassionate to those who fear him. He knows your body; he remembers that you are dust.’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He is the hope of the poor, the strength of the needy in his distress, a refuge from the storm, and a shadow from the devastating heat.’ ‘He gives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who have no might he increases strength.’ ‘A bruised reed shall he not break, and the smoking flax he will not quench.’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of affliction, I will be with you, and when the rivers of adversity overflow you, I will not forsake you.’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o comfort all who mourn.’ ‘There is correction in suffering; affliction does not spring forth from the dust.’”

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 6 장. 고통에 대한 오해—옴에 대한 강연

같은 날 밤 벳세다에서, 요한이 예수께 왜 그렇게 명백하게 선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요한에게 대한 대답으로 주(主)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이야, 너는 재난의 의미와 혹은 고통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셈족 문학의 걸작인 옴의 고난이라는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님의 하인이 지닌 물질적인 변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옴은 자식, 재물, 명예, 지위, 건강 등, 사람이 현세의 일생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너는 잘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물질적인 변영이 신성한 은혜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소유물이나 그러한 현세의 변영이 하느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부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사랑하는 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신성한 법을 어기는 것이 조만간에 처벌이라는 추수를 거두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분명하게 결국에는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인간이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 언제나 선행된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한다. 옴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견잡을 수없는 혼란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빛을 가지고는, 너희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그들이 상연하는 부분 부분들을 사탄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고 하느님의 역할로 돌리기도 힘들 것이다. 옴이, 고통을 당하면서 두루, 그의 지적(知的)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혹은 그의 철학적 어려움의 해결을 찾아내지 못했어도,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부서지는 바로 그 면전에 이르러서도, 그는 ‘나는 내 자신이 몹시 싫다.’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높이로 상승했다; 그런 다음 그에게는 하느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이 허락되었다. 그렇게 비록 잘못 납득된 고통을 통해서도, 옴은 도덕적 납득과 영적 통찰력에서의 초인간적 경지로 상승했다. 고통을 받는 하인이 하느님의 환상을 얻으면,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납득을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뒤따른다.

“옴의 첫 친구인 엘리바스는 고통받는 자에게, 그가 변영을 누리던 시절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었던 바로 그 꾀꿍함을, 그의 환난 속에서 똑같이 드러내 보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였다. 이 거짓 위로자는 말하였다: ‘옴이여, 너의

6. THE MISUNDERSTANDING OF SUFFERING — DISCOURSE ON JOB

148:6.1 (1662.3) It was this same evening at Bethsaida that John also asked Jesus why so many apparently innocent people suffered from so many diseases and experienced so many afflictions. In answering John's questions, among many other things, the Master said:

148:6.2 (1662.4) “My son, you do not comprehend the meaning of adversity or the mission of suffering. Have you not read that masterpiece of Semitic literature — the Scripture story of the afflictions of Job? Do you not recall how this wonderful parable begins with the recital of the material prosperity of the Lord's servant? You well remember that Job was blessed with children, wealth, dignity, position, health, and everything else which men value in this temporal life. According to the time-honored teachings of the children of Abraham such material prosperity was all-sufficient evidence of divine favor. But such material possessions and such temporal prosperity do not indicate God's favor. My Father in heaven loves the poor just as much as the rich;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148:6.3 (1663.1) “Although transgression of divine law is sooner or later followed by the harvest of punishment, while men certainly eventually do reap what they sow, still you should know that human suffering is not always a punishment for antecedent sin. Both Job and his friends failed to find the true answer for their perplexities. And with the light you now enjoy you would hardly assign to either Satan or God the parts they play in this unique parable. While Job did not, through suffering, find the resolution of his intellectual troubles or the solution of his philosophical difficulties, he did achieve great victories; even in the very face of the breakdown of his theological defenses he ascended to those spiritual heights where he could sincerely say, ‘I abhor myself’; then was there granted him the salvation of a vision of God. So even through misunderstood suffering, Job ascended to the superhuman plane of moral understanding and spiritual insight. When the suffering servant obtains a vision of God, there follows a soul peace which passes all human understanding.

148:6.4 (1663.2) “The first of Job's friends, Eliphaz, exhorted the sufferer to exhibit in his afflictions the same fortitude he had prescribed for others during the days of his prosperity. Said this false comforter: ‘Trust in your religion, Job; remember

종교를 신뢰하라. 고통을 받는 자는 사악한 자이며, 정의로운 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너는 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있었음이 틀림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결코 사악한 자는 실제로 번영할 수 없음을 네가 알고 있다. 어쨌든 사람은 곤란을 겪는 운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주님께서 단지 너에게 좋으라고 너를 응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쌍한 욕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에서의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그 당시 인정받던 신학의 입장에서는 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한 것이었다. 빌닷이 말하였다: '하느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너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네가 실제로 의롭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너의 고난으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다. 전능자는 단지 악한 자만을 없앤다는 것을 너는 하느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욕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했는지를 너는 기억한다. 그는 말하였다: '하느님이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님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그렇게 나의 무죄를 모른 척 할 수 있으신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한 자가 악한 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너희는 식별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악한데, 전능한 하느님의 손에서 어떤 것을 우연이라도 배려받기를 바라겠느냐? 하느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버리셨으니, 나는 막을 재간이 없다. 어찌하여 하느님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이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조언과 그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던 하느님에 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관념에 비추어볼 때, 누가 욕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는가? 욕은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을 갈구하고 있었으니, 그가 사람의 필사자 처지를 알고, 긴 파라도이스상승의 이 첫 번째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때때로 올바른 자가 결백한 가운데 고통 받아야 함을 납득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의 교제에 굶주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이제부터 욕의 고통을 참아내도록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저들 모든 이를 위로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욕의 세 번째 친구 소팔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였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이는 데, 자신이 옳바르다고 주장하는 네가 어리석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아마도 너의 모든 비극에는 어떤 감추어진 목적이 있

that it is the wicked and not the righteous who suffer. You must deserve this punishment, else you would not be afflicted. You well know that no man can be righteous in God's sight. You know that the wicked never really prosper. Anyway, man seems predestined to trouble, and perhaps the Lord is only chastising you for your own good.' No wonder poor Job failed to get much comfort from such an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148:6.5 (1663.3) "But the counsel of his second friend, Bildad, was even more depressing, notwithstanding its soundness from the standpoint of the then accepted theology. Said Bildad: 'God cannot be unjust. Your children must have been sinners since they perished; you must be in error, else you would not be so afflicted. And if you are really righteous, God will certainly deliver you from your afflictions. You should learn from the history of God's dealings with man that the Almighty destroys only the wicked.'

148:6.6 (1663.4) "And then you remember how Job replied to his friends, saying: 'I well know that God does not hear my cry for help. How can God be just and at the same time so utterly disregard my innocence? I am learning that I can get no satisfaction from appealing to the Almighty. Cannot you discern that God tolerates the persecution of the good by the wicked? And since man is so weak, what chance has he for consideration at the hands of an omnipotent God? God has made me as I am, and when he thus turns upon me, I am defenseless. And why did God ever create me just to suffer in this miserable fashion?'

148:6.7 (1663.5) "And who can challenge the attitude of Job in view of the counsel of his friends and the erroneous ideas of God which occupied his own mind? Do you not see that Job longed for a human God, that he hungered to commune with a divine Being who knows man's mortal estate and understands that the just must often suffer in innocence as a part of this first life of the long Paradise ascent? Wherefore has the Son of Man come forth from the Father to live such a life in the flesh that he will be able to comfort and succor all those who must henceforth be called upon to endure the afflictions of Job.

148:6.8 (1663.6) "Job's third friend, Zophar, then spoke still less comforting words when he said: 'You are foolish to claim to be righteous, seeing that you are thus afflicted. But I admit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God's ways. Perhaps there is some hidden purpose in all your miseries.' And when Job

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 친구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목숨이 길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탄원하면서 하느님께 직접 도움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되었다. 엘리바스는 점점 더 엄하고, 비난적이고, 조소적이 되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자 기분이 상했으며, 소팔은 그의 우울한 조언을 다시 반복하였다. 이때쯤에는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청원하였다. 이제 그는 그의 친구들의 철학으로 체현되고, 그 자신의 종교적 태도로 둘러싸인 불공정의 하느님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다음으로 욥은, 필사자 실존의 불공평이 의롭게 수정되어질 평안한 미래의 일생으로 피난처를 삼았다.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은 욥의 실패가 욥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런 후에 그의 가슴 속에서 신앙과 의심의 큰 갈등이 뒤 따랐다, 마침내, 괴로움의 인간은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고통 받은 혼이 희망과 용기의 새로운 높이로 올라갔다. 그는 계속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할지도 모르나, 그의 깨우친 혼은 이제 ‘나를 옹호해 주시는 이가 살아계신다!’라는 승리의 외침을 하였다.

“하느님이 그들의 부모를 벌하기 위하여 그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교리에 욥이 도전하였을 때, 그는 참으로 옳았다. 욥은 언제나 하느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영원자의 개별적 성격이 드러나는 혼이-만족하는 계시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당하는 필사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납득함으로써 얻는 위안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하느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있던 당시의 장엄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가슴 안에서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 ‘이것이 그 길이다, 그곳으로 걸여라.’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를 자기처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려고 해오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나!”

그런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첫째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존이라는 악(惡)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 그 다음으로, 냉혹한 죄의 결과—생명과 빛의 법칙을 어김—로 고통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하늘의 원칙에 반역 안에서, 그 자신의 사악하게 불의한 끈질긴 지속의 결실을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비참함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세의 고통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요청에 따라 하느님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미신으로부터 단호하게 구제될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릇된 관념들이 선한 사람에게까지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had listened to all three of his friends, he appealed directly to God for help, pleading the fact that ‘man, born of woman, is few of days and full of trouble.’

148:6.9 (1664.1) “Then began the second session with his friends. Eliphaz grew more stern, accusing, and sarcastic. Bildad became indignant at Job’s contempt for his friends. Zophar reiterated his melancholy advice. Job by this time had become disgusted with his friends and appealed again to God, and now he appealed to a just God against the God of injustice embodied in the philosophy of his friends and enshrined even in his own religious attitude. Next Job took refuge in the consolation of a future life in which the inequities of mortal existence may be more justly rectified. Failure to receive help from man drives Job to God. Then ensues the great struggle in his heart between faith and doubt. Finally, the human sufferer begins to see the light of life; his tortured soul ascends to new heights of hope and courage; he may suffer on and even die, but his enlightened soul now utters that cry of triumph, ‘My Vindicator lives!’

148:6.10 (1664.2) “Job was altogether right when he challenged the doctrine that God afflicts children in order to punish their parents. Job was ever ready to admit that God is righteous, but he longed for some soul-satisfying revel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 of the Eternal. And that is our mission on earth. No more shall suffering mortals be denied the comfort of knowing the love of God and understanding the mercy of the Father in heaven. While the speech of God spoken from the whirlwind was a majestic concept for the day of its utterance, you have already learned that the Father does not thus reveal himself, but rather that he speaks within the human heart as a still, small voice, saying, ‘This is the way; walk therein.’ Do you not comprehend that God dwells within you, that he has become what you are that he may make you what he is!”

148:6.11 (1664.3) Then Jesus made this final statement: “The Father in heaven does not willingly afflict the children of men. Man suffers, first, from the accidents of time and the imperfections of the evil of an immature physical existence. Next, he suffers the inexorable consequences of sin — the transgression of the laws of life and light. And finally, man reaps the harvest of his own iniquitous persistence in rebellion against the righteous rule of heaven on earth. But man’s miseries are not a personal visitation of divine judgment. Man can, and will, do much to lessen his temporal sufferings. But once and for all be delivered from the superstition that God afflicts man at the behest of the evil one. Study the Book of Job just to discover how many wrong ideas of God even good men may honestly

읍기를 읽어 보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고난당하던 읍까지도 어떻게 하여 위안과 구원의 하느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이 치유의 자비와 영속하는 정의로움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고통의 구름을 뚫고 나갔다.”

요한은 가슴 속에서 여러 날 동안 이러한 말들을 숙고하였다. 그의 전 삶 그 정원에서 주(主)와 가진 이 대화의 결과로 현저히 변화되었다. 그는 나중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고난들의 근원, 성질, 목적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바꾸는데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주(主)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 대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제 7 장. 손 마른 사람

사도들과 새 전도자들 집단이 두 번째 갈릴리 설교 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는 “의로운 삶의 기쁨”에 대하여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예수가 말씀을 끝마쳤을 때, 불구된 자, 절름발이, 병자, 고난당하는 자들의 큰 무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를 둘러싸며 모여 들었다. 또한 그 무리 속에는 사도들과 새로 된 전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첩자들도 섞여 있었다. 예수가 가는 곳은 어디에나(아버지의 일을 하러 언덕으로 갔을 때를 제외하고) 여섯 명의 그 예루살렘 첩자들도 항상 따라갔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서있을 때, 바리새인 첩자들의 영도자가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께 가까이 가서 안식일에 치료 받는 것이 법적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도움 받기를 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예수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내졌음을 감지하면서 말씀하였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앞으로 나오너라.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것을 구해 내겠느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나?”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主)여,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도록 하여 나를 헐뜯기 위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속으로는 너희 모두가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겠는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사랑과-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적법한 일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선포하겠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들 모두가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자, 예수가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향해서 말씀하였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옆으로 와서 여기 서라.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entertain; and then note how even the painfully afflicted Job found the God of comfort and salvation in spite of such erroneous teachings. At last his faith pierced the clouds of suffering to discern the light of life pouring forth from the Father as healing mercy and everlasting righteousness.”

148:6.12 (1664.4) John pondered these sayings in his heart for many days. His entire afterlife was markedly changed as a result of this conversation with the Master in the garden, and he did much, in later times, to cause the other apostles to change their viewpoints regarding the source, nature, and purpose of commonplace human afflictions. But John never spoke of this conference until after the Master had departed.

7.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148:7.1 (1664.5) The second Sabbath before the departure of the apostles and the new corps of evangelists on the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Jesus spoke in the Capernaum synagogue on the “Joys of Righteous Living.”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 large group of those who were maimed, halt, sick, and afflicted crowded up around him, seeking healing. Also in this group were the apostles, many of the new evangelists, and the Pharisaic spies from Jerusalem. Everywhere that Jesus went (except when in the hills about the Father’s business) the six Jerusalem spies were sure to follow.

148:7.2 (1665.1) The leader of the spying Pharisees, as Jesus stood talking to the people, induced a man with a withered hand to approach him and ask if it would be lawful to be healed on the Sabbath day or should he seek help on another day. When Jesus saw the man, heard his words, and perceived that he had been sent by the Pharisees, he said: “Come forward while I ask you a question. If you had a sheep and it should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day, would you reach down, lay hold on it, and lift it out? Is it lawful to do such things on the Sabbath day?” And the man answered: “Yes, Master, it would be lawful thus to do well on the Sabbath day.” Then said Jesus, speaking to all of them: “I know wherefore you have sent this man into my presence. You would find cause for offense in me if you could tempt me to show mercy on the Sabbath day. In silence you all agreed that it was lawful to lift the unfortunate sheep out of the pit, even on the Sabbath, and I call you to witness that it is lawful to exhibit loving-kindness on the Sabbath day not only to animals but also to men.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I proclaim that it is lawful to do good to men on the Sabbath day.” And as they all stood before him in silence, Jesus, addressing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said: “Stand up here

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명하겠는데,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주려고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는 가슴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떠나갔다.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티베리아스까지 서둘러 가서 헤롯과 상의하였고, 헤롯 집안이 예수와 반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편견을 일으킬 만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평을 하라고 충고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그의 적들의 도전에 응답하여 예수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다. 주(主)가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치료의 힘을 실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종교의 안식일 휴식에 대해 억압을 가하여 의미 없는 사실상의 굴레로 만든 것에 반대하여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인 석공의 일로 다시 돌아갔으며, 그 치유로 인한 감사와 정의로움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제 8 장. 벳세다에서의 마지막 주간

벳세다에서 머물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첩자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분열이 일어났다. 세 명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의 젊고 영향력 있는 의원인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였고, 실로암 연못에서 아브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모든 예루살렘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해졌고, 메신저들이 곧 벳세다로 여섯 명의 바리새인 첩자들을 소환하러 파견되었다.

전에 있었던 갈릴리의 여행에서 왕국을 받아 들였던 그리스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부자인 어떤 유대인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병자들을 위한 병원은 물론이고 철학과 종교의 합작 학교를 세우는 목적으로 예수를 그들의 도시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공손하게 그 초청을 거절하였다.

이 무렵에 바그다드로부터 커르메스라는 최면현상의 선지자가 벳세다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은 최면현상에 들어가면 이상한 환상들을 보았으며, 그의 잠이 방해가 될 때는 환상적인 꿈들을 꾸었다. 그는 야영지

by my side that all may see you. And now that you may know that it is my Father's will that you do good on the Sabbath day, if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I bid you stretch out your hand.”

148:7.3 (1665.2) And as this man stretched forth his withered hand, it was made whole. The people were minded to turn upon the Pharisees, but Jesus bade them be calm, saying: “I have just told you that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to save life, but I did not instruct you to do harm and give way to the desire to kill.” The angered Pharisees went away, and notwithstanding it was the Sabbath day, they hastened forthwith to Tiberias and took counsel with Herod,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arouse his prejudice in order to secure the Herodians as allies against Jesus. But Herod refused to take action against Jesus, advising that they carry their complaints to Jerusalem.

148:7.4 (1665.3) This is the first case of a miracle to be wrought by Jesus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of his enemies. And the Master performed this so-called miracle, not as a demonstration of his healing power, but as an effective protest against making the Sabbath rest of religion a veritable bondage of meaningless restrictions upon all mankind. This man returned to his work as a stone mason, proving to be one of those whose healing was followed by a life of thanksgiving and righteousness.

8. LAST WEEK AT BETHSAIDA

148:8.1 (1665.4) The last week of the sojourn at Bethsaida the Jerusalem spies became much divided in their attitude toward Jesus and his teachings. Three of these Pharisees were tremendously impressed by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Meanwhile, at Jerusalem, Abraham, a young and influential member of the Sanhedrin, publicly espoused the teachings of Jesus and was baptized in the pool of Siloam by Abner. All Jerusalem was agog over this event, and messenger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Bethsaida recalling the six spying Pharisees.

148:8.2 (1666.1) The Greek philosopher who had been won for the kingdom on the previous tour of Galilee returned with certain wealthy Jews of Alexandria, and once more they invited Jesus to come to their cit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joint school of philosophy and religion as well as an infirmary for the sick. But Jesus courteously declined the invitation.

148:8.3 (1666.2) About this time there arrived at the Bethsaida encampment a trance prophet from Bagdad, one Kirmeth. This supposed prophet had peculiar visions when in trance and dreamed fantastic dreams when his sleep was disturbed.

에서 상당한 소동을 피웠다. 그래서 시몬 젤로떼가 자아-기만에 빠진 이 현학자를 다소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중재하여 그가 며칠 동안 모든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였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왕국 복음으로 판단하여 볼 때,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단지 여섯 명의 불안정하고 정상이 아닌 혼들을 데리고, 곧 바그다드로 돌아갔다. 예수가 바그다드 선지자를 위해 미쳐 손을 쓰시기도 전에, 다윗 세베대가 자아-임명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커르메스를 호수로 데려가서 여러 번 물속으로 그를 처넣은 후에, -자신만의 캠프를 조직하고 세우기 위해-그 곳을 떠나라고 조언하였다.

같은 이 날에 페니키아 여인인 베스마리온이 너무나 열광하여 정신이 나갔고,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다 거의 물에 빠질 뻔 한 후에,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돌려보내졌다.

예루살렘의 새 개종자인 바리새인 아브라함이 그의 세상에서의 재물들 모두를 사도 기금으로 바쳤으며, 이 기부금으로 그들은 100 명의 새로 훈련된 전도자들을 즉각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안드레가 이미 야영지를 닫는다고 발표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갈릴리로 전도자들을 따라 갈 준비를 하였다.

제 9 장. 중풍 병자를 고치심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가 사도들, 전도자들, 그리고 야영지(野營地)를 해산시키는 영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여섯 명의 바리새인들도 세베대의 집에 널찍하고 크게 트여진 맨 앞의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앞자리에 함께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의 모든 이 세상 일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에피소드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이때에, 주(主)는 비가 내리는 이 계절에 이러한 모임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운 큰 방에 서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집은 예수의 강연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로 전반적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열성스런 청중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둘러 싸여 있는 동안에, 중풍병으로 오래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운 채로 가버나움으로부터 왔다. 이 중풍 병자는 예수가 벧세다를 떠나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최근에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석공인 아론과 이야기를 한 후, 그가 치유를 구할 수 있는 장소인, 예수의 현존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고쳐지도록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앞문과 뒷문 양쪽을 통하여 세베대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람들로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He created a considerable disturbance at the camp, and Simon Zelotes was in favor of dealing rather roughly with the self-deceived pretender, but Jesus intervened and allowed him entire freedom of action for a few days. All who heard his preaching soon recognized that his teaching was not sound as judged by the gospel of the kingdom. He shortly returned to Bagdad, taking with him only a half dozen unstable and erratic souls. But before Jesus interceded for the Bagdad prophet, David Zebedee, with the assistance of a self-appointed committee, had taken Kirmeth out into the lake and, after repeatedly plunging him into the water, had advised him to depart hence — to organize and build a camp of his own.

148:8.4 (1666.3) On this same day, Beth-Marion, a Phoenician woman, became so fanatical that she went out of her head and, after almost drowning from trying to walk on the water, was sent away by her friends.

148:8.5 (1666.4) The new Jerusalem convert, Abraham the Pharisee, gave all of his worldly goods to the apostolic treasury, and this contribution did much to make possible the immediate sending forth of the one hundred newly trained evangelists. Andrew had already announced the closing of the encampment, and everybody prepared either to go home or else to follow the evangelists into Galilee.

9. HEALING THE PARALYTIC

148:9.1 (1666.5) On Friday afternoon, October 1, when Jesus was holding his last meeting with the apostles, evangelists, and other leaders of the disbanding encampment, and with the six Pharisees from Jerusalem seated in the front row of this assembly in the spacious and enlarged front room of the Zebedee home, there occurred one of the strangest and most unique episodes of all Jesus' earth life. The Master was, at this time, speaking as he stood in this large room, which had been built to accommodate these gatherings during the rainy season. The house was entirely surrounded by a vast concourse of people who were straining their ears to catch some part of Jesus' discourse.

148:9.2 (1666.6) While the house was thus thronged with people and entirely surrounded by eager listeners, a man long afflicted with paralysis was carried down from Capernaum on a small couch by his friends. This paralytic had heard that Jesus was about to leave Bethsaida, and having talked with Aaron the stone mason, who had been so recently made whole, he resolved to be carried into Jesus' presence, where he could seek healing. His friends tried to gain entrance to Zebedee's house by both the front and back doors, but too many people were crowded together. But

중풍 병자는 실패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사다리를 가져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방의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지도하였다. 기와를 벗기고 그들은 대담하게 침상채로 그 병자를 줄에 매달아 주(主)의 바로 앞바닥에 내려놓았다. 예수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을 중단하였고, 한편 그 방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병자와 친구들의 인내에 감탄하였다. 중풍 병자가 말하였다: “주(主)여, 당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낫게 되기를 꼭 원합니다. 저는 고침을 받아들이고 바로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하늘의 왕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자신의 잘못 산 일생으로 인하여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본 예수가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였다: “아들아, 두려워 마라, 너의 죄는 용서된다. 너의 신앙이 너를 구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함께 예수의 이 발표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는가? 그러한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가? 하느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의 각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져보는 것을 예수가 그의 영으로 감지하고 말씀하였다: “너희는 가슴 속에서 어찌서 그렇게 따져보느냐? 너희가 누구이기에 나를 비판하는 자리에 앉느냐? 내가 이 중풍 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겠다.”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중풍 병자는 일어났으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길을 비켜주자 그들 모두 앞에서 걸어 나갔다.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놀랐다. 베드로가 무리들을 해산시켰으나,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기이한 일은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 무렵에 산헤드린의 메신저들이 여섯 첩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그들이 이 전갈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그들의 토의를 완결한 이후, 영도자와 두 사람이 메신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세 명의 바리새인 첩자들은 예수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호수로 가서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들에 의해 왕국의 자녀로서 연관-동료관계를 갖게 되었다..

the paralytic refused to accept defeat; he directed his friends to procure ladders by which they ascended to the roof of the room in which Jesus was speaking, and after loosening the tiles, they boldly lowered the sick man on his couch by ropes until the afflicted one rested on the floor immediately in front of the Master. When Jesus saw what they had done, he ceased speaking, while those who were with him in the room marveled at the perseverance of the sick man and his friends. Said the paralytic: “Master, I would not disturb your teaching, but I am determined to be made whole. I am not like those who received healing and immediately forgot your teaching. I would be made whole that I might serve in the kingdom of heaven.” Now, notwithstanding that this man’s affliction had been brought upon him by his own misspent life, Jesus, seeing his faith, said to the paralytic: “Son, fear not; your sins are forgiven. Your faith shall save you.”

148:9.3 (1667.1) When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together with other scribes and lawyers who sat with them, heard this pronouncement by Jesus, they began to say to themselves: “How dare this man thus speak? Does he not understand that such words are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 but God?” Jesus, perceiving in his spirit that they thus reasoned within their own minds and among themselves, spoke to them, saying: “Why do you so reason in your hearts? Who are you that you sit in judgment over me? What is the difference whether I say to this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But that you who witness all this may finall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and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I will say to this afflicted man, Arise, take up your bed, and go to your own house.”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 paralytic arose, and as they made way for him, he walked out before them all. And those who saw these things were amazed. Peter dismissed the assemblage, while many prayed and glorified God, confessing that they had never before seen such strange happenings.

148:9.4 (1667.2) And it was about this time that the messengers of the Sanhedrin arrived to bid the six spies return to Jerusalem. When they heard this message, they fell to earnest debate among themselves; and after they had finished their discussions, the leader and two of his associates returned with the messengers to Jerusalem, while three of the spying Pharisees confessed faith in Jesus and, going immediately to the lake, were baptized by Peter and fellowshipped by the apostles as children of the kingdom.

제 149 편 두 번째 설교 여행

⇨ 148

유랜시아 책

15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49 편 두 번째 설교 여행

섹션

소개

- 제 1 장.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 제 2 장. 사람들의 태도
- 제 3 장. 종교 영도자들의 적개심
- 제 4 장. 설교 여행의 진전
- 제 5 장. 충족에 대한 교훈
- 제 6 장. “주(主)님을 두려워 함”
- 제 7 장. 벳세다로 돌아감

PAPER 149

THE SECOND PREACHING TOUR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Widespread Fame of Jesus
- 2. Attitude of the People
- 3. Hostility of the Religious Leaders
- 4. Progress of the Preaching Tour
- 5. Lesson Regarding Contentment
- 6. The “Fear of the Lord”
- 7. Returning to Bethsaida

소개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은 서기 28년 10월 3일 일요일에 시작되어 세 달 동안을 계속하여 12월 30일에 끝이 났다. 예수와 12사도들은 새로 뽑은 117명의 전도자 집단과 수많은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 일을 진행했다. 이 여행을 통하여 그들은 가다라, 프톨레마이스, 야피아, 다바리타, 메기도, 예즈릴, 스키토폴리스, 타리케아, 히포, 가말라, 벳세다-줄리아스, 그리고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이 일요일 아침 떠나기에 앞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께 새 전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내려달라고 청했으나, 주(主)는 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충분한 토의 끝에 야고보 세베대가 그 임무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야고보의 말이 결론에 이를 때에 예수가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라. 나중에 너희가 힘 있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이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왕국 복음을 설교하도록 임명하겠다.”

INTRODUCTION

^{149:0.1 (1668.1)} THE second public preaching tour of Galilee began on Sunday, October 3, A.D. 28, and continued for almost three months, ending on December 30. Participating in this effort were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assisted by the newly recruited corps of 117 evangelists and by numerous other interested persons. On this tour they visited Gadara, Ptolemais, Japhia, Dabaritta, Megiddo, Jezreel, Scythopolis, Tarichea, Hippos, Gamala, Bethsaida-Julias, and many other cities and villages.

^{149:0.2 (1668.2)} Before the departure on this Sunday morning Andrew and Peter asked Jesus to give the final charge to the new evangelists, but the Master declined, saying that it was not his province to do those things which others could acceptably perform. After due deliberation it was decided that James Zebedee should administer the charge. At the conclusion of James's remarks Jesus said to the evangelists: “Go now forth to do the work as you have been charged, and later on, when you have shown yourselves competent and faithful, I will ordain you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 여행에서는 단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와 동행하였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각각은 약 12명에 달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설교와 가르치는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였다. 신자(信者)들이 왕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자마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실시하였다. 예수와 두 동행자들은 이제 달 동안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그들은 때로는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자들의 활동을 돌보고,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두 번째 설교 여행은 주로 새로 훈련받은 117명 각자에게 실천적인 체험을 잘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이 기간 그리고 나중에 예수와 12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출발을 할 당시까지 내내, 다윗 세베대가 그의 아버지 집인 벳세다에서 왕국의 사업을 위한 영구(永久) 본부를 세워 놓고 꾸려나갔다. 이것은 다윗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 사이에서 수행하던 메신저 봉사를 위한 연결 본부인,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일을 위한 정보교환 장소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을 안드레의 승인만을 얻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다윗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확대되는 왕국의 일에서 정보 담당 소속으로 40 내지 50명의 전령들을 고용하였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맡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를 잡는 일에도 때때로 종사하여, 일부나마 자기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였다.

제 1 장.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벳세다의 야영지가 해산될 무렵에는 예수의 명성, 특히 병 치유자로서의 명성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위시하여 시리아와 주변 모든 지방들에 퍼져 나갔다. 그들이 벳세다를 떠난 후 수주일 동안에도 병자들이 계속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主)를 만나지 못했을 때, 다윗으로부터 주(主)가 계신 곳을 알아낸 후 그를 찾아가곤 하였다. 이 여행에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치유를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수십 명이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간구하도록 재촉했던 집중적 신앙의 재활하는 힘의 어떤 결과에 따라 그대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이 무렵에—그리고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여—이상하고도 설명되지 않는 치유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세 달 동안의 여행에서 유대, 이두미아, 갈릴리, 시리아, 티레, 시돈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지방에서 온 100명이 넘는 남녀들과 아이들이 예수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치유의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예수가 무의식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혜택을 본 자들에게 직접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

149:0.3 (1668.3) On this tour only James and John traveled with Jesus.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each took with them about one dozen of the evangelists and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them while they carried on their work of preaching and teaching. As fast as believers were ready to enter the kingdom, the apostles would administer baptism. Jesus and his two companions traveled extensively during these three months, often visiting two cities in one day to observe the work of the evangelists and to encourage them in their efforts to establish the kingdom. This entire second preaching tour was principally an effort to afford practical experience for this corps of 117 newly trained evangelists.

149:0.4 (1668.4) Throughout this period and subsequently, up to the time of the final departure of Jesus and the twelve for Jerusalem, David Zebedee maintained a permanent headquarters for the work of the kingdom in his father's house at Bethsaida. This was the clearinghouse for Jesus' work on earth and the relay station for the messenger service which David carried on between the workers in various parts of Palestine and adjacent regions. He did all of this on his own initiative but with the approval of Andrew. David employed forty to fifty messengers in this intelligence division of the rapidly enlarging and extending work of the kingdom. While thus employed, he partially supported himself by spending some of his time at his old work of fishing.

1. THE WIDESPREAD FAME OF JESUS

149:1.1 (1668.5) By the time the camp at Bethsaida had been broken up, the fame of Jesus, particularly as a healer, had spread to all parts of Palestine and through all of Syria and the surrounding countries. For weeks after they left Bethsaida, the sick continued to arrive, and when they did not find the Master, on learning from David where he was, they would go in search of him. On this tour Jesus did not deliberately perform any so-called miracles of healing. Nevertheless, scores of afflicted found restoration of health and happiness as a result of the reconstructive power of the intense faith which impelled them to seek for healing.

149:1.2 (1669.1) There began to appear about the time of this mission — and continued throughout the remainder of Jesus' life on earth — a peculiar and unexplained series of healing phenomena. In the course of this three months' tour more than one hundred men, women, and children from Judea, Idumea, Galilee, Syria, Tyre, and Sidon, and from beyond the Jordan were beneficiaries of this unconscious healing by Jesus and, returning to their homes, added to the enlargement of Jesus'

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이고 무의식적인 치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몇 번의 경우에서 단지 “기세가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가 말했었던 것을 제외하면, 주(主)는 한 번도 이러한 치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한 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생명이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라고 주(主)가 말씀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치유의 성질에 관하여 주(主)가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체 넘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치유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이 이 세상 사명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뚜렷한 치유의 기적은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관된 영향이 공존했던 결과인 것 같다:

1. 순전히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영적 은혜를 위해 그러한 치유가 갈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고침 받기를 갈망하는 인간존재의 가슴 안에 내재해 있던 강하고 지배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현존.

2.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의 능력들과 특권들을 그의 개인 안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하고 자비가-지배하는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의, 그러한 인간의 신앙과 공존하는, 큰 동정심과 연민의 실존.

3. 창조체의 신앙과 창조자의 일생과 더불어 또한 이 하느님-사람이 아버지의 뜻의 개인화(個人化)된 표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만 한다. 만약에 인간 필요의 접촉과 신성한 능력이 만날 때, 아버지의 반대만 없었으면 그 두 가지는 하나가 되었고, 치유는 인간 예수에게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발생했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많은 치유의 경우들은 우리가 오래 알아 온 하나의 위대한 법칙, 창조자 아들이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개인적 현존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인간의 심오한 신앙이, 특정한 창조적 기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의 개인성들에 의한 치유의 현시 활동 안에서, 문자 그대로의 진정으로 강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주 그의 현존 안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강렬한 각자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병이 고쳐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사실이다.

fame. And they did this notwithstanding that Jesus would, every time he observed on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directly charge the beneficiary to “tell no man.”

149:1.3 (1669.2) It was never revealed to us just what occurred in these cases of spontaneous or unconscious healing. The Master never explained to his apostles how these healings were effected, other than that on several occasions he merely said,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forth from me.” On one occasion he remarked when touched by an ailing child, “I perceive that life has gone forth from me.”

149:1.4 (1669.3) In the absence of direct word from the Master regarding the nature of these cases of spontaneous healing, it would be presuming on our part to undertake to explain how they were accomplished, but it will be permissible to record our opinion of all such healing phenomena. We believe that many of these apparent miracles of healing, as they occurred in the course of Jesus' earth ministry, were the result of the coexistence of the following three powerful, potent, and associated influences:

149:1.5 (1669.4) 1. The presence of strong, dominant, and living faith in the heart of the human being who persistently sought healing, together with the fact that such healing was desired for its spiritual benefits rather than for purely physical restoration.

149:1.6 (1669.5) 2. The existence, concomitant with such human faith, of the great sympathy and compassion of the incarnated and mercy-dominated Creator Son of God, who actually possessed in his person almost unlimited and timeless creative healing powers and prerogatives.

149:1.7 (1669.6) 3. Along with the faith of the creature and the life of the Creato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is God-man was the personified expression of the Father's will. If, in the contact of the human need and the divine power to meet it, the Father did not will otherwise, the two became one, and the healing occurred unconsciously to the human Jesus but was immediately recognized by his divine nature. The explanation, then, of many of these cases of healing must be found in a great law which has long been known to us, namely, What the Creator Son desires and the eternal Father wills IS.

149:1.8 (1669.7) It is, then, our opinion that, in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certain forms of profound human faith were literally and truly *compelling* in the manifestation of healing by certain creative forces and personalities of the universe who were at that time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e Son of Man. It therefore becomes a fact of record that Jesus did frequently suffer men to heal themselves in his presence by their powerful, personal faith.

다른 많은 이들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병 고침을 구하였다. 티레의 부유한 과부는 시종들과 함께 그녀의 병을 고치러 왔었는데,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의 병이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힘이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자에게 팔리는 어떤 물건인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여기저기를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점점 더 돈을 많이 내겠다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왕국 복음에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찾았던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 2 장. 사람들의 태도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납득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셨으며, 그의 가르침이 그가 가르친 그대로 그들 안에 남아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이 세상 일생에 의하여 잘 제공된 영감 받은 해석만이 유일한 주석이 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의 종교가 신속하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좋은 의도를 가졌던 예수 초기 추종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특정한 민족, 인류, 종교에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한 노고는 단지 그러한 가르침들로 하여금 모든 다른 민족, 인류, 종교에는 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특정한 집단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시와 교훈을 주는 많은 편지들을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구도 이러한 글들의 일부가 나중에 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체현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저들에 의하여, 한군데 모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에 주(主)의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보다는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의 많은 가르침과 그리스 철학의 많은 것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 말고도,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오류가 범해졌다:

1.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유대의 신학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그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속죄의 교리—예수가 아버지의 엄한 공의를 만족시키며 또한 신성한 분노를 완화시켜주는 희생양으로서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왕국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좀 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 이러한 노력이 유대인들을 이겨보려는 데에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세 세대에서 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고립되게 하는 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2. 주(主)의 초기 추종자들의 두 번째의 큰 실책은 완벽하게 예수 개인에 관해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조직한 것이었는데, 모든 후세 세대들이 영속으로 이 오류를 끈질기게 계속했다. 그리스도

149:1.9 (1670.1) Many others sought healing for wholly selfish purposes. A rich widow of Tyre, with her retinue, came seeking to be healed of her infirmities, which were many; and as she followed Jesus about through Galilee, she continued to offer more and more money, as if the power of God were something to be purchased by the highest bidder. But never would she become interest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was only the cure of her physical ailments that she sought.

2. ATTITUDE OF THE PEOPLE

149:2.1 (1670.2) Jesus understood the minds of men. He knew what was in the heart of man, and had his teachings been left as he presented them, the only commentary being the inspired interpretation afforded by his earth life, all nations and all religions of the world would speedily have embrace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well-meant efforts of Jesus' early followers to restate his teachings so as to make them the more acceptable to certain nations, races, and religions, only resulted in making such teachings the less acceptable to all other nations, races, and religions.

149:2.2 (1670.3) The Apostle Paul, in his efforts to bring the teachings of Jesus to the favorable notice of certain groups in his day, wrote many letters of instruction and admonition. Other teachers of Jesus' gospel did likewise, but none of them realized that some of these writings would subsequently be brought together by those who would set them forth as the embodiment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so, while so-called Christianity does contain more of the Master's gospel than any other religion, it does also contain much that Jesus did not teach. Aside from the incorporation of many teachings from the Persian mysteries and much of the Greek philosophy into early Christianity, two great mistakes were made:

149:2.3 (1670.4) 1. The effort to connect the gospel teaching directly onto the Jewish theology, as illustrated by the Christian doctrines of the atonement — the teaching that Jesus was the sacrificed Son who would satisfy the Father's stern justice and appease the divine wrath. These teachings originated in a praiseworthy effort to make the gospel of the kingdom more acceptable to disbelieving Jews. Though these efforts failed as far as winning the Jews was concerned, they did not fail to confuse and alienate many honest souls in all subsequent generations.

149:2.4 (1670.5) 2. The second great blunder of the Master's early followers, and one which all subsequent generations have persisted in perpetuating, was to organize the Christian

교 신학에서 예수의 개인성에 관한 과잉 강조는 그의 가르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유대인, 모하멧 교도, 힌두인, 다른 동방의 종교가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을 받드는 종교에서 예수 개인의 위치를 경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배려가 그의 영감 어린 일생을 가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를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의 종교의 선생들은 다른 종교를 다루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삼가는 한편, 공통으로 갖는 진리(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특정한 그 당시에, 예수의 명성은 주로 병 고치는 자이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그의 도움을 그에게 구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즉각적으로 끌었던 것은 역시 육체의 병 고침을 통해서였다. 점점 더 도덕적 노예가 된 희생자와 정신적 질환자들이 예수를 찾았으며, 그는 늘 해방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어머니들은 딸들을 기르는 것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었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인간들의 슬픔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 그의 사명활동을 구하는 자들을 도왔다.

창조자 자신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화 되어있을 때, 어떤 비상한 일들이 발생해야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기적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서 초(超)물 질적인 행동을 행한 유일한 종교적 창시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미가엘에 대한 가장 놀랍고도 혁명적인 면모는 그가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공공 장소에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까지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가 대담하게 그의 세 번째 갈릴리 여행과 관련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여인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랍비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

한 세대를 통하여 예수는 멀리 당하면서 잊혀서 사는 그 시대의 노예와 같은 고난에서 여자들

teaching so completely about the *person* of Jesus. This overemphasis of the personality of Jesus in the theology of Christianity has worked to obscure his teachings, and all of this has mad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Jews, Mohammedans, Hindus, and other Eastern religionists to accept the teachings of Jesus. We would not belittle the place of the person of Jesus in a religion which might bear his name, but we would not permit such consideration to eclipse his inspired life or to supplant his saving message: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149:2.5 (1670.6) The teachers of the religion of Jesus should approach other religio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truths which are held in common (many of which com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Jesus' message) while they refrain from placing so much emphasis on the differences.

149:2.6 (1671.1) While, at that particular time, the fame of Jesus rested chiefly upon his reputation as a healer, it does not follow that it continued so to rest. As time passed, more and more he was sought for spiritual help. But it was the physical cures that made the most direct and immediate appeal to the common people. Jesus was increasingly sought by the victims of moral enslavement and mental harassments, and he invariably taught them the way of deliverance. Fathers sought his advi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ir sons, and mothers came for help in the guidance of their daughters. Those who sat in darkness came to him, and he revealed to them the light of life. His ear was ever open to the sorrows of mankind, and he always helped those who sought his ministry.

149:2.7 (1671.2) When the Creator himself was on earth,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t was inevitable that some extraordinary things should happen. But you should never approach Jesus through these so-called miraculous occurrences. Learn to approach the miracle through Jesus,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approaching Jesus through the miracle. And this admonition is warranted, notwithstanding that Jesus of Nazareth is the only founder of a religion who performed supermaterial acts on earth.

149:2.8 (1671.3) The most astonishing and the most revolutionary feature of Michael's mission on earth was his attitude toward women. In a day and generation when a man was not supposed to salute even his own wife in a public place, Jesus dared to take women along as teachers of the gospel in connection with his third tour of Galilee. And he had the consummate courage to do this in the face of the rabbinic teaching which declared that it was “better that the words of the law should be burned than delivered to women.”

149:2.9 (1671.4) In one generation Jesus lifted women out of the disrespectful oblivion and the slavish

을 들어 올렸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믿어지는 종교의 후세의 세대들이 그들의 태도에서 여자에 대한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를 용기를 잃은 것은 참 애석한 일이다.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 시절의 미신으로부터 전혀 매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에게는 종교적 편견이 없었으며, 인내심이 강하였다. 그의 가슴속에서 그는 사회적 반목은 그 비슷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선조들의 종교에서 좋은 점을 취하고, 한편으론 사람이 만든 미신과 속박의 전통을 무시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자연의 큰 재해, 뜻밖의 사고, 기타 비참한 재앙들이 신성한 심판이거나 신비스러운 신(神)의 뜻이 펼쳐진 섭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의미 없는 의식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물질적 경배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는 과감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육신의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담하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참된 종교의 표시로 청결한 손 대신에 청결한 가슴으로 대담하게 대체하였을 때, 그는 선조들의 모든 가르침을 초월하였다. 그는 전통의 자리에 실체를 놓았고 그리고 허영과 위선의 모든 허식을 쓸어버렸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 없는 하느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의 말이나 혹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관례에 대한 전적인 무시를 현시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전적인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보적인 진화론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우월한 것을 동시에 제공할 때에만 오직 이미 있는 것들의 파괴에 들어갔다.

예수는 추종자들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복종을 받아들였다. 그의 개인적인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단지 세 사람만이 제자신분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이기 거절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특출한 힘을 행사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독재적이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 넘쳐 명령하였지만, 누구도 그의 명령에 분개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 위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코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이 자신을 주(主)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였다.

주(主)는 종교적 편견에 깊이 빠진 자들이거나 그의 가르침에서 정치적 위험을 느끼는 자들을 제외하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탄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기원성과 권위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우둔하고 성가신 질문자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경탄하였다.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가슴속에 붙들고 있으려고 결심한 악과 실수를 뒤집어엎도록 운명되어진 진리의 투사라고 예수를 여기었던 사람들만이, 그를 중오하였다.

drudgery of the ages. And it is the one shameful thing about the religion that presumed to take Jesus' name that it lacked the moral courage to follow this noble example in its subsequent attitude toward women.

149:2.10 (1671.5) As Jesus mingled with the people, they found him entirely free from the superstitions of that day. He was free from religious prejudices; he was never intolerant. He had nothing in his heart resembling social antagonism. While he complied with the good in the religion of his fathers, he did not hesitate to disregard man-made traditions of superstition and bondage. He dared to teach that catastrophes of nature, accidents of time, and other calamitous happenings are not visitations of divine judgments or mysterious dispensations of Providence. He denounced slavish devotion to meaningless ceremonials and exposed the fallacy of materialistic worship. He boldly proclaimed man's spiritual freedom and dared to teach that mortals of the flesh are indeed and in truth sons of the living God.

149:2.11 (1671.6) Jesus transcended all the teachings of his forebears when he boldly substituted clean hearts for clean hands as the mark of true religion. He put reality in the place of tradition and swept aside all pretensions of vanity and hypocrisy. And yet this fearless man of God did not give vent to destructive criticism or manifest an utter disregard of the religiou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sages of his day. He was not a militant revolutionist; he was a progressive evolutionist. He engaged in the destruction of that which was only when he simultaneously offered his fellows the superior thing which *ought to be*.

149:2.12 (1672.1) Jesus received the obedience of his followers without exacting it. Only three men who received his personal call refused to accept the invitation to discipleship. He exercised a peculiar drawing power over men, but he was not dictatorial. He commanded confidence, and no man ever resented his giving a command. He assumed absolute authority over his disciples, but no one ever objected. He permitted his followers to call him Master.

149:2.13 (1672.2) The Master was admired by all who met him except by those who entertained deep-seated religious prejudices or those who thought they discerned political dangers in his teachings. Men were astonished at the originality and authoritativeness of his teaching. They marveled at his patience in dealing with backward and troublesome inquirers. He inspired hope and confidence in the hearts of all who came under his ministry. Only those who had not met him feared him, and he was hated only by those who regarded him as the champion of that truth which was destined to overthrow the evil and error which they had determined to hold in their hearts at all

그는 친구들이나 적들 모두에게 강력한, 그리고 이상하게 매혹적인 영향을 끼쳤다. 단지 그의 우아한 말을 듣고 그의 단순한 일생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 동안 그의 뒤를 따랐다. 헌신적인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였다. 그들이 그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그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세기에서까지도 사람들은 이 하느님-사람을 좀 더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될 것이다.

제 3 장. 종교 영도자들의 적개심

일반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종교 영도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과 반목을 일으키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조직적이고 독단적인 신학을 형성했는데, 예수는 기회가 일어나는 대로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이었고, 조직적인 선생이 아니었다. 예수는 법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으로부터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을 때, 그는 그 목적을 위한 이야기의 단 한가지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많은 그릇된 관념이 그의 비유로부터 우화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은 최근에 젊은 아브라함이 개종했던 사건과 세 명의 첩자들이 탈락한 후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갈릴리의 두 번째 설교 여행에 전도자로 나간 사건의 결과로 거의 광란적인 상태에 있었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점점 더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 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슴이 왕국 복음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를 계속하여 배척함으로 인해 굳어져 갔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영의 호소를 차단하여 잠귀 버릴 때, 거기에는 그들의 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예수가 처음 벳세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만났을 때, 자신의 말을 결론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육체와 마음—감정적으로—속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똑같은 형태인 것은 내주하는 영뿐이다. 신성한 영들이 그들의 체험의 성향과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똑같은 형태로 반응한다.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의 호소에 따름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화합과 형제애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의 많은 영도자들은 복음의 영적 호소에 그들의 가슴의 문을 닫았다. 이 날로부터 그들은 주(主)를 없애려는 계획과 음모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종교적 범죄자, 유대의 성스런 율법의 기본 가르침

cost.

149:2.14 (1672.3) On both friends and foes he exercised a strong and peculiarly fascinating influence. Multitudes would follow him for weeks, just to hear his gracious words and behold his simple life. Devoted men and women loved Jesus with a well-nigh superhuman affection. And the better they knew him the more they loved him. And all this is still true; even today and in all future ages, the more man comes to know this God-man, the more he will love and follow after him.

3. HOSTILITY OF THE RELIGIOUS LEADERS

149:3.1 (1672.4) Notwithstanding the favorable reception of Jesus and his teachings by the common people,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became increasingly alarmed and antagonistic. The Pharisees had formulated a systematic and dogmatic theology. Jesus was a teacher who taught as the occasion served; he was not a systematic teacher. Jesus taught not so much from the law as from life, by parables. (And when he employed a parable for illustrating his message, he designed to utilize just *one* feature of the story for that purpose. Many wrong ideas concerning the teachings of Jesus may be secured by attempting to make allegories out of his parables.)

149:3.2 (1672.5)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were becoming well-nigh frantic as a result of the recent conversion of young Abraham and by the desertion of the three spies who had been baptized by Peter, and who were now out with the evangelists on this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The Jewish leaders were increasingly blinded by fear and prejudice, while their hearts were hardened by the continued rejection of the appeal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men shut off the appeal to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them, there is little that can be done to modify their attitude.

149:3.3 (1672.6) When Jesus first met with the evangelists at the Bethsaida camp, in concluding his address, he said: “You should remember that in body and mind — emotionally — men react individually. The only uniform thing about men is the indwelling spirit. Though divine spirits may vary somewhat i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ir experience, they react uniformly to all spiritual appeals. Only through, and by appeal to, this spirit can mankind ever attain unity and brotherhood.” But many of the leaders of the Jews had closed the doors of their hearts to the spiritual appeal of the gospel. From this day on they ceased not to plan and plot for the Master’s destruction. They were convinced that Jesus must be apprehended,

을 위반한 자로서 체포되어 유죄 선고를 받아 처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convicted, and executed as a religious offender, a violator of the cardinal teachings of the Jewish sacred law.

제 4 장. 설교 여행의 진전

이 설교 여행에서 예수는 대중을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야고보와 요한과 우연히 머물게 된 대부분의 도시나 동네에서는 신자들과 많은 저녁 교실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저녁 수업시간 중에 한 번은, 나이 어린 전도자가 예수께 분노에 관해서 질문하자, 주(主)가 대답했던 여러 말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합된 지적(知的) 육체적 본성에 대한 통제를 이루어 보려는 영적 본성에서 그 실패를 제어할 수 있는 물질적 현실활동이다. 분노는 니그러운 형제로서의 사랑에 대한 너의 부족함과 여기에 너의 자아-존중과 자아-통제에 대한 부족함이 합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저하시키며 사람 혼의 영적 선생에게 장애가 된다.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과 사람이 ‘분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낸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한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는 다음의 말들도 잘 알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슬기가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통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 함이 많다.’ ‘정신에서 서두르지 말라. 분노는 바보들의 품에 머문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하였다: “너의 영 안내자가, 신성한 아들관계의 직위와는 모순되는 그러한 동물적인 노함이 격발로 분출시키는 경향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너희의 가슴이 사랑으로 지배되어 있게 하라.”

바로 이 기회에, 주(主)는 무리들에게 균형 잡힌 성격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예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통달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모든 경향들, 편협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일생의 활동으로 한정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였다. 어떤 미덕이든지 그것이 극도로 행해진다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항상 절제를 설교하였고, 일관성—일생 문제에서의 균형 잡힌 조절—을 가르쳤다. 지나친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퇴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열광은 광신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들의 옛 연관-동료들 중 하나가, 스스로의 상상력이 그 자신을 환상적이고 비실천적인 과업으로 이끌었던 일에 관하여 논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단조로움에서의 둔감함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4. PROGRESS OF THE PREACHING TOUR

149:4.1 (1673.1) Jesus did very little public work on this preaching tour, but he conducted many evening classes with the believers in most of the cities and villages where he chanced to sojourn with James and John. At one of these evening sessions one of the younger evangelists asked Jesus a question about anger, and the Master, among other things, said in reply:

149:4.2 (1673.2) “Anger is a material manifestation which represents, in a general way, the measure of the failure of the spiritual nature to gain control of the combined intellectual and physical natures. Anger indicates your lack of tolerant brotherly love plus your lack of self-respect and self-control. Anger depletes the health, debases the mind, and handicaps the spirit teacher of man’s soul.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that ‘wrath kills the foolish man,’ and that man ‘tears himself in his anger’? That ‘he who is slow of wrath is of great understanding,’ while ‘he who is hasty of temper exalts folly’? You all know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and how ‘grievous words stir up anger.’ ‘Discretion defers anger,’ while ‘he who has no control over his own self is like a defenseless city without walls.’ ‘Wrath is cruel and anger is outrageous.’ ‘Angry men stir up strife, while the furious multiply their transgressions.’ ‘Be not hasty in spirit, for anger rests in the bosom of fools.’” Before Jesus ceased speaking, he said further: “Let your hearts be so dominated by love that your spirit guide will have little trouble in delivering you from the tendency to give vent to those outbursts of animal anger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status of divine sonship.”

149:4.3 (1673.3) On this same occasion the Master talked to the group about the desirability of possessing well-balanced characters. He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for most men to devote themselves to the mastery of some vocation, but he deplored all tendency toward overspecialization, toward becoming narrow-minded and circumscribed in life’s activities. He called attention to the fact that any virtue, if carried to extremes, may become a vice. Jesus always preached temperance and taught consistency — proportionate adjustment of life problems. He pointed out that overmuch sympathy and pity may degenerate into serious emotional instability; that enthusiasm may drive on into fanaticism. He discussed one of their former associates whose imagination had led him off into visionary and impractical undertakings. At the same time he warned them against the dangers of the dullness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는 어떻게 사고력이 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그는 또한 신중함과 사려 깊은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그것들이 소심함과 실패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편향으로 기우는 모든 성향을 피하고, 독창성을 위하여 분투할 것을 교훈 하였다. 그는 감상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 하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두려움과 미신에 속박 받지 않고 드리는 존경을 가르치었다.

균형 잡힌 성격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자신의 일생 자체가 그의 가르침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의 연관-동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압박감과 폭풍 속에서 살았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적들은 계속해서 함정을 놓았지만, 결코 그를 빠트릴 수는 없었다. 현자들과 박식한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논쟁에 휩쓸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깨우침을 주고, 위엄 있고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가 여러 종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강연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그의 대답은 항상 의의(意義)깊고 결론적이었다. 그는 그에 대한 공격으로 온갖 종류의 헛되고 부적당하며 불의한 방법을 주저 없이 동원하는 그의 적들의 계속되는 압력과 만나면서도, 절대로 명예롭지 못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어떤 정해진 직업에 자신들을 꾸준히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생에서의 폭넓은 문화적 접촉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무지함 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제 5 장. 충족에 대한 교훈

예수가 시몬 젤로페와 함께 일하던 전도자들의 집단을 방문하였던 저녁 회합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지요? 그 가득한 만족은 종교적 체험의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예수가 시몬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시몬아,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한다.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이, 사람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에게 인도받고 지도받으려고 기꺼이 나서는 데에 달려 있다. 너희의 현자(賢者)가 ‘사람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한 말을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저들 영에-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하였다: ‘줄이 그어져 기쁨이 넘치는 곳

of overconservative mediocrity.

149:4.4 (1673.4) And then Jesus discoursed on the dangers of courage and faith, how they sometimes lead unthinking souls on to recklessness and presumption. He also showed how prudence and discretion, when carried too far, lead to cowardice and failure. He exhorted his hearers to strive for originality while they shunned all tendency toward eccentricity. He pleaded for sympathy without sentimentality, piety without sanctimoniousness. He taught reverence free from fear and superstition.

149:4.5 (1674.1) It was not so much what Jesus taught about the balanced character that impressed his associates as the fact that his own life was such an eloquent exemplification of his teaching. He lived in the midst of stress and storm, but he never wavered. His enemies continually laid snares for him, but they never entrapped him. The wise and learned endeavored to trip him, but he did not stumble. They sought to embroil him in debate, but his answers were always enlightening, dignified, and final. When he was interrupted in his discourses with multitudinous questions, his answers were always significant and conclusive. Never did he resort to ignoble tactics in meeting the continuous pressure of his enemies, who did not hesitate to employ every sort of false, unfair, and unrighteous mode of attack upon him.

149:4.6 (1674.2) While it is true that many men and women must assiduously apply themselves to some definite pursuit as a livelihood vocation, it is nevertheless wholly desirable that human beings should cultivate a wide range of cultural familiarity with life as it is lived on earth. Truly educated persons are not satisfied with remaining in ignorance of the lives and doings of their fellows.

5. LESSON REGARDING CONTENTMENT

149:5.1 (1674.3) When Jesus was visiting the group of evangelists working under the supervision of Simon Zelotes, during their evening conference Simon asked the Master: “Why are some persons so much more happy and contented than others? Is contentment a matter of religious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Jesus said in answer to Simon’s question:

149:5.2 (1674.4) “Simon, some persons are naturally more happy than others. Much, very much, depends upon the willingness of man to be led and directed by the Father’s spirit which lives within him.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the words of the wise man, ‘The spirit of man is the candle of the Lord,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s’? And also that such spirit-led mortals say: ‘The

안에 내가 들게 되었다. 그렇다. 값진 유산을 받았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크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로부터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쾌활한 가슴은 활기찬 표정을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잔치와 같다. 적게 가진 자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큰 보화와 그와 함께 있는 괴로움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약초로 먹는 저녁이 살찐 소를 증오와 함께 있는 기름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정의로움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공정함이 없는 큰 소득보다 낫다.' '쾌활한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평온과 함께 있는 한 움큼이, 슬프고 괴로운 영과 함께 있는 초(超)호화로움보다 낫다.'

“대부분의 사람의 슬픔이 야망을 이루지 못한 실망과 자부심에서의 상처에서 탄생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래서 진지하게 전력을 기울여 가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활기차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창의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사람의 괴로움의 너무 많은 모든 것이 자신의 본성적 가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토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사악한 자는 괴로운 바다와 같고, 그것은 쉴 수 없으니, 단지 진창과 더러움이 솟구치는 물일뿐이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거짓 평화와 과도기적인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가득한 만족, 최극의 즐거움을 결실로 낳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관계의 확실성을 구하라.”

예수는 이 세상을 도무지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영원하고 불멸의 영들이 탄생하는 구제,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제 6 장. “주(主)님을 두려워 함”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합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성서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主)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가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초에는 단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이 존경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그로서 아들의 애정 넘치는 인지(認知)와 이에 대한 보답인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끌어냄으로서, 너희는 영원자를 경배하도록 이끌려 질것이다. 내가,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하느님을 지겹도록 봉사예배 하는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들을 속박하는 일에서 구해 줄

lines are fallen to me in pleasant places; yes, I have a goodly heritage.’ ‘A little that a righteous man has is better than the riches of many wicked,’ for ‘a good man shall be satisfied from within himself.’ ‘A merry heart makes a cheerful countenance and is a continual feast. Better is a little with the reverence of the Lord than great treasure and trouble therewith. Better is a dinner of herbs where love is than a fatted ox and hatred therewith.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revenues without rectitude.’ ‘A merry heart does good like a medicine.’ ‘Better is a handful with composure than a superabundance with sorrow and vexation of spirit.’

149:5.3 (1674.5) “Much of man’s sorrow is born of the disappointment of his ambitions and the wounding of his pride. Although men owe a duty to themselves to make the best of their lives on earth, having thus sincerely exerted themselves, they should cheerfully accept their lot and exercise ingenuity in making the most of that which has fallen to their hands. All too many of man’s troubles take origin in the fear soil of his own natural heart. ‘The wicked flee when no man pursues.’ ‘The wicked are like the troubled sea, for it cannot rest, but its waters cast up mire and dirt; there is no peace, says God, for the wicked.’

149:5.4 (1674.6) “Seek not, then, for false peace and transient joy but rather for the assurance of faith and the sureties of divine sonship which yield composure, contentment, and supreme joy in the spirit.”

149:5.5 (1675.1) Jesus hardly regarded this world as a “vale of tears.” He rather looked upon it as the birth sphere of the eternal and immortal spirits of Paradise ascension, the “vale of soul making.”

6. THE “FEAR OF THE LORD”

149:6.1 (1675.2) It was at Gamala, during the evening conference, that Philip said to Jesus: “Master, why is it that the Scriptures instruct us to ‘fear the Lord,’ while you would have us look to the Father in heaven without fear? How are we to harmonize these teachings?” And Jesus replied to Philip, saying:

149:6.2 (1675.3) “My children, I am not surprised that you ask such questions. In the beginning it was only through fear that man could learn reverence, but I have come to reveal the Father’s love so that you will be attracted to the worship of the Eternal by the drawing of a son’s affectionate recognition and reciprocation of the Father’s profound and perfect love. I would deliver you from the bondage of driving yourselves through slavish fear to the irksome service of a jealous and wrathful King-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자(父子)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서, 그것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하느님께 숭고하고 숭고한 자유로운 경배 속으로 너희가 기쁘게 인도될 것이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연속되어진 여러 세대에서 다른 의미들을 가졌는데,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고통과 불안을 거쳐서, 경외와 존경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는 내가 존경에서 시작하여 인지, 실현, 그리고 깊은 감사를 거쳐서 사랑에 올라와 이르도록 너희를 이끌고자 한다. 사람이 하느님의 업적만을 인지할 때, 그는 최극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려오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개인성과 성격을 납득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점점 더 어떤 선하고 완전하며 우주적이며 영원한 그러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사람의 이들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

“지능을 가진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애정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준 풍부한 선물을 이미 가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인식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그들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이끌린다. 하느님의 선함은 회개로, 하느님의 은혜는 봉사로, 하느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인도하며, 한편 하느님의 사랑은 지능적이고 걱정 없는 경배로 인도한다.

“너희의 선조는 하느님의 강하심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였다. 너희는 그를 찬미할 것이니 이는 그가 사랑에서 비할 데 없고, 자비에서 충만하며, 그리고 진리에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힘은 사람의 가슴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의 개인성에서의 고귀성과 정의로움은 존경, 사랑, 자발적인 경배를 하게 만든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막강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슬픔의 자리에 기쁨으로, 공포의 자리에 자신감으로, 노예적인 억압과 무의미한 의식(儀式)의 자리에 사랑하는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좀 더 충만하게 비추었을 때, 하느님의 자녀는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그 이신 것 때문에 무한자를 찬양하도록 인도된다.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사명활동과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는, 그들은 납득에서 나온 존중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하여, 부모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보다는 부모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모를 실재적으로 사랑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God. I would instruct you in the Father-son relationship of God and man so that you may be joyfully led into that sublime and supernal free worship of a loving, just, and merciful Father-God.

149:6.3 (1675.4) “The ‘fear of the Lord’ has had different meanings in the successive ages, coming up from fear, through anguish and dread, to awe and reverence. And now from reverence I would lead you up, through recognition, realization, and appreciation, to love. When man recognizes only the works of God, he is led to fear the Supreme; but when man begin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 of the living God, he is led increasingly to love such a good and perfect, universal and eternal Father. And it is just this changing of the relation of man to God that constitutes the mission of the Son of Man on earth.

149:6.4 (1675.5) “Intelligent children do not fear their father in order that they may receive good gifts from his hand; but having already received the abundance of good things bestowed by the dictates of the father’s affection for his sons and daughters, these much loved children are led to love their father in responsive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of such munificent beneficence. The goodness of God leads to repentance; the beneficence of God leads to service; the mercy of God leads to salvation; while the love of God leads to intelligent and freehearted worship.

149:6.5 (1675.6) “Your forebears feared God because he was mighty and mysterious. You shall adore him because he is magnificent in love, plenteous in mercy, and glorious in truth. The power of God engenders fear in the heart of man, but the nobility and righteousness of his personality beget reverence, love, and willing worship. A dutiful and affectionate son does not fear or dread even a mighty and nobl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to put love in the place of fear, joy in the place of sorrow, confidence in the place of dread, loving service and appreciative worship in the place of slavish bondage and meaningless ceremonies. But it is still true of those who sit in darkness that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But when the light has more fully come, the sons of God are led to praise the Infinite for what he is rather than to fear him for what he does.

149:6.6 (1675.7) “When children are young and unthinking, they must necessarily be admonished to honor their parents; but when they grow older and become somewhat more appreciative of the benefits of the parental ministry and protection, they are led up, through understanding respect and increasing affection, to that level of experience where they actually love their parents for what they are more than for what they have done. The father

자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경외, 무서움, 의존 그리고 존경을 두루 통하고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리고 애정까지 이르도록,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전체적인 의무이다.’라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은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니라.’고 가르치겠다. 너희의 선조들은 ‘하느님, 전능한 왕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이제 ‘하느님, 모든-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겠다.

“내가 선포하러 온 하늘의 왕국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 이 왕국은 하나의 신성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적으로 경배를 받는 중심이 되시며, 광대하게 퍼져 있는 지능존재들의 형제집단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영토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만 두어라. 창조자로 존경하는 것을 배우라; 너희 영 어린아이의 아버지로서 명예롭게 하라; 자비 넘치는 옹호자로 사랑하라; 그리고 궁극에는, 너희의 더욱 성숙된 영적 실현과 진정한 인식에서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전적으로-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겸손에 대한 거짓된 관념이 사라지고 많은 너희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성과 기원에서 흠에서 난 벌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내 아버지의 영이 깃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운명이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된 영은 신성한 근원과 기원이 되는 우주 차원으로 확실하게 되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주하는 이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아이가 될 필사 사람의 인간 혼도, 분명히 그 신성한 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늘왕국으로 가는 영원한 상승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후보자들에게 신성한 위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들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 필사 사람에게 겸손은,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다. 외양으로 꾸미는 그리고 거짓된 겸손의 무의미하고 천박한 실천은, 너희의 구원의 근원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영으로 태어난 혼의 운명을 인지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하느님 앞에서의 겸양은 너희의 가슴속 깊은데서 하는 것이 알맞은 일이다;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식적이고 그리고 관심을-갈망하는 겸양의 위선은 유치하며, 왕국의 깨우친 자녀에게는 가치가 없다.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온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아-통제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

naturally loves his child, but the child must develop his love for the father from the fear of what the father can do, through awe, dread, dependence, and reverence, to the appreciative and affectionate regard of love.

149:6.7 (1676.1) “You have been taught that you should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at is the whole duty of man.’ But I have come to give you a new and higher commandment. I would teach you to ‘love God and learn to do his will, for that is the highest privilege of the liberated sons of God.’ Your fathers were taught to ‘fear God — the Almighty King.’ I teach you, ‘Love God — the all-merciful Father.’

149:6.8 (1676.2) “In the kingdom of heaven, which I have come to declare, there is no high and mighty king; this kingdom is a divine family. The universally recognized and unreservedly worshiped center and head of this far-flung brotherhood of intelligent beings is my Father and your Father. I am his Son, and you are also his sons. Therefore it is eternally true that you and I are brethren in the heavenly estate, and all the more so since we have become brethren in the flesh of the earthly life. Cease, then, to fear God as a king or serve him as a master; learn to reverence him as the Creator; honor him as the Father of your spirit youth; love him as a merciful defender; and ultimately worship him as the loving and all-wise Father of your more mature spiritual realization and appreciation.

149:6.9 (1676.3) “Out of your wrong concepts of the Father in heaven grow your false ideas of humility and springs much of your hypocrisy. Man may be a worm of the dust by nature and origin, but when he becomes indwelt by my Father’s spirit, that man becomes divine in his destiny. The bestowal spirit of my Father will surely return to the divine source and universe level of origin, and the human soul of mortal man which shall have become the reborn child of this indwelling spirit shall certainly ascend with the divine spirit to the very presence of the eternal Father.

149:6.10 (1676.4) “Humility, indeed, becomes mortal man who receives all these gifts from the Father in heaven, albeit there is a divine dignity attached to all such faith candidates for the eternal ascent of the heavenly kingdom. The meaningless and menial practices of an ostentatious and false humility are incompatible with the appreciation of the source of your salva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destiny of your spirit-born souls. Humility before God is altogether appropriate in the depths of your hearts; meekness before men is commendable; but the hypocrisy of self-conscious and attention-craving humility is childish and unworthy of the enlightened sons of the kingdom.

149:6.11 (1676.5) “You do well to be meek before God and self-controlled before men, but let your

희의 온순함이 영적 기원에 있게 하라, 그래서 자아-정의로운 우월성의 그러한 어떤 자아-의식적인 것에서의 자아-기만적 전시(展示)가 되지 않도록 하라. 선지자가 충고하여 말하기를, '하느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자이며 영원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영을 지니는 그러한 자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자부심을 경멸하며, 위선을 몹시 싫어하며, 사악한 불의를 혐오한다. 그리고 내가 필사 사람이 하늘의 왕국의 영 실체로 들어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마음의 태도와 영적 반응을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자주 예로서 거론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원과 신실한 인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성실함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잘 말하였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느님께 가까우나, 가슴 안에서는 멀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그렇게 사제는 고용되어 가르치고, 그렇게 선지자는 돈을 벌려고 신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경건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음을 선포한다.' 너희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가슴에는 해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अच्छ하나 가슴은 이중-거래에 쏠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 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신뢰하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은 것'만큼 그처럼 끔찍한 것은 없다."

제 7 장. 벳세다로 돌아감

시몬 베드로와 상의하고 예수의 승인을 받은 후, 안드레는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끝내고 12월 30일, 목요일에 벳세다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내기 위해 설교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메신저들을 파견하라고 벳세다의 다윗에게 지시하였다. 비 오는 날인 그날 저녁식사 시간까지 모든 사도 집단과 전도자들 모두가 세베대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 집단은 벳세다의 집들과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의 집들에서 지내면서 안식일 이후까지 함께 지냈다. 그런 후에 전 집단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한 두 주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그들이 벳세다에서 함께 있었던 2-3일간은 진정으로 흥미롭고 영감 어린 날들이었다. 선배 선생들까지도 후배 설교자들의 체험담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갈릴리의 두 번째 설교 여행에 참가했던 117명의 전도자들 중에서 오직 약 75명만이 실제적인 체험의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두 주일의 휴가가 끝났을 때 봉사에 배정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집에 남아있었으며 왕국의 복지와 확장에 관

meekness be of spiritual origin and not the self-deceptive display of a self-conscious sense of self-righteous superiority. The prophet spoke advisedly when he said, 'Walk humbly with God,' for, while the Father in heaven is the Infinite and the Eternal, he also dwells 'with him who is of a contrite mind and a humble spirit.' My Father disdains pride, loathes hypocrisy, and abhors iniquity. And it was to emphasize the value of sincerity and perfect trust in the loving support and faithful guidance of the heavenly Father that I have so often referred to the little child as illustrative of the attitude of mind and the response of spirit which are so essential to the entrance of mortal man into the spirit realities of the kingdom of heaven.

149:6.12 (1677.1) "Well did the Prophet Jeremiah describe many mortals when he said: 'You are near God in the mouth but far from him in the heart.' And have you not also read that direful warning of the prophet who said: 'The priests thereof teach for hire, and the prophets thereof divine for money. At the same time they profess piety and proclaim that the Lord is with them.' Have you not been well warned against those who 'speak peace to their neighbors when mischief is in their hearts,' those who 'flatter with the lips while the heart is given to double-dealing'? Of all the sorrows of a trusting man, none are so terrible as to be 'wounded in the house of a trusted friend.'"

7. RETURNING TO BETHSAIDA

149:7.1 (1677.2) Andrew, in consultation with Simon Peter and with the approval of Jesus, had instructed David at Bethsaida to dispatch messengers to the various preaching groups with instructions to terminate the tour and return to Bethsaida sometime on Thursday, December 30. By supper time on that rainy day all of the apostolic party and the teaching evangelists had arrived at the Zebedee home.

149:7.2 (1677.3) The group remained together over the Sabbath day, being accommodated in the homes of Bethsaida and near-by Capernaum, after which the entire party was granted a two weeks' recess to go home to their families, visit their friends, or go fishing. The two or three days they were together in Bethsaida were, indeed, exhilarating and inspiring; even the older teachers were edified by the young preachers as they narrated their experiences.

149:7.3 (1677.4) Of the 117 evangel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second preaching tour of Galilee, only about seventy-five survived the test of actual experience and were on hand to be assigned to service at the end of the two weeks' recess. Jesus, with Andrew, Peter, James, and John, remained at the Zebedee home and spent

한 회의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much time in conference regarding the welfare
and extension of the kingdom.

제 150 편 세 번째 설교 여행

⇨ 149

유랜시아 책

15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0 편 세 번째 설교 여행

섹션

소개

제 1 장. 여인 전도 집단

제 2 장. 막달라에 들림

제 3 장. 티베리아스에서 안식일

제 4 장. 사도들을 돌씩 내보내다

제 5 장.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제 6 장. 저녁 수업

제 7 장. 나사렛에서의 체류

제 8 장. 안식일 봉사에배

제 9 장. 나사렛의 배척

소개

기원후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아브너가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벳세다에 도착하였고, 다음날에 안드레와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합동 회의에 들어갔다.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들의 본부를 헤브론에 두었고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벳세다로 올라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합동 회의에서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병자에게 일정형식의 기름을 부어오던 실천 관행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예수는 그들의 토론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발표를 거절하였다. 요한의 사도들은 언제든지 병자나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한 일을 할 때 기름 붓는 일을 행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양쪽 집단에 대한 공통된 관행으로 세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사도들은 그러한 규정에 자신들을 매어놓기를 거절하였다.

1월 18일 화요일에, 세 번째 갈릴리 설교(說敎) 여행에 파견되기에 앞서, 벳세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서 검증되었던 전도자 24명이 합류(合

PAPER 150

THE THIRD PREACHING TOU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Women's Evangelistic Corps

2. The Stop at Magdala

3. Sabbath at Tiberias

4. Sending the Apostles out Two and Two

5. What Must I Do to Be Saved?

6. The Evening Lessons

7. The Sojourn at Nazareth

8. The Sabbath Service

9. The Nazareth Rejection

INTRODUCTION

150:0.1 (1678.1) ON SUNDAY evening, January 16, A.D. 29, Abner, with the apostles of John, reached Bethsaida and went into joint conference with Andrew and the apostles of Jesus the next day. Abner and his associates made their headquarters at Hebron and were in the habit of coming up to Bethsaida periodically for these conferences.

150:0.2 (1678.2) Among the many matters considered by this joint conference was the practice of anointing the sick with certain forms of oil in connection with prayers for healing. Again did Jesus decline to participate in their discussions or to express himself regarding their conclusions. The apostles of John had always used the anointing oil in their ministry to the sick and afflicted, and they sought to establish this as a uniform practice for both groups, but the apostles of Jesus refused to bind themselves by such a regulation.

150:0.3 (1678.3) On Tuesday, January 18, the twenty-four were joined by the tested evangelists, about seventy-five in number, at the Zebedee house in

流)되어, 숫자가 약 75명이 되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7주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전도자들을 5명씩 한 집단으로 같이 내보내고, 한편 예수와 12사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여행하였는데, 사도들이 둘씩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또한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거의 3주일 동안 전도자 집단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막달라, 티베리아스, 나사렛과 이미 전에 방문했었던 곳과 또 다른 많은 지역들,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과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갈릴리에 보내진 그들의 마지막 전과였다.

제 1 장. 여인 전도 집단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생애(生涯)와 관련해서 그가 하였던 대담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1월 16일 밤에 있었던 그의 갑작스런 발표였다: “내일 우리가 왕국의 일을 돌보기 위하여 별도로 10명의 여인들을 선발하겠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휴가를 받아 벳세다를 떠나는 두 주(週)간의 휴가가 시작될 무렵에, 예수는 다윗에게 그의 부모를 집으로 오게 할 것과 그 전의 야영지와 천막 병원(病院)의 관리-행정에 동참했던 10명의 신앙심이 강한 여인을 벳세다로 불러들이도록 메신저들을 보내라고 시켰다. 이 여인들 모두는 그 젊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여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가르치며 병자(病者)를 돌보는 일을 맡기리라고는 그들 자신들이나 선생들은 결코 생각에 떠올리지 못했었다. 예수가 임명한 이 10명의 여인들은, 전에 나사렛 회당의 카잔(선생)이었던 사람의 딸 수잔나, 헤롯의 청지기 추자의 아내 요안나, 티베리아스와 세포리 부자(富者) 유대인의 딸 엘리자벳, 안드레와 베드로의 큰누나 마르다, 주(主)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처제 라헬, 시리아 의사인 엘만의 딸 나산타, 사도 도마의 사촌 밀가, 세리(稅吏) 마태의 만딸 롯, 로마 백부장의 딸 켈타, 다마스쿠스의 과부 아가만이였다. 나중에 예수는 다른 두 여인들—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인 레베카—를 이 집단에 추가하였다.

예수는 이 여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세우도록 위임하였으며, 유다에게 그들의 장비와 짐 부리는 가축을 준비할 기금을 제공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10명은 수잔나를 그들의 의장으로, 요안나를 회계로 선출하였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금을 스스로 충당하였으며,

Bethsaida preparatory to being sent forth on the third preaching tour of Galilee. This third mission continued for a period of seven weeks.

150:0.4 (1678.4) The evangelists were sent out in groups of five, while Jesus and the twelve traveled together most of the time, the apostles going out two and two to baptize believers as occasion required. For a period of almost three weeks Abner and his associates also worked with the evangelistic groups, advising them and baptizing believers. They visited Magdala, Tiberias, Nazareth, and all the principal cities and villages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all the places previously visited and many others. This was their last message to Galilee, except to the northern portions.

1. THE WOMEN'S EVANGELISTIC CORPS

150:1.1 (1678.5) Of all the daring things which Jesus did in connection with his earth career, the most amazing was his sudden announcement on the evening of January 16: “On the morrow we will set apart ten women for the ministering work of the kingdom.” At the beginning of the two weeks’ period during which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to be absent from Bethsaida on their furlough, Jesus requested David to summon his parents back to their home and to dispatch messengers calling to Bethsaida ten devout women who had serv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former encampment and the tented infirmary. These women had all listened to the instruction given the young evangelists, but it had never occurred to either themselves or their teachers that Jesus would dare to commission women to t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minister to the sick. These ten women selected and commissioned by Jesus were: Susanna, the daughter of the former chazan of the Nazareth synagogue; Joanna, the wife of Chuza, the steward of Herod Antipas; Elizabeth, the daughter of a wealthy Jew of Tiberias and Sepphoris; Martha, the elder sister of Andrew and Peter; Rachel, the sister-in-law of Jude, the Master’s brother in the flesh; Nasanta, the daughter of Elman, the Syrian physician; Milcha, a cousin of the Apostle Thomas; Ruth, the eldest daughter of Matthew Levi; Celta, the daughter of a Roman centurion; and Agaman, a widow of Damascus. Subsequently, Jesus added two other women to this group — Mary Magdalene and Rebecca, the daughter of Joseph of Arimathea.

150:1.2 (1679.1) Jesus authorized these women to effect their own organization and directed Judas to provide funds for their equipment and for pack animals. The ten elected Susanna as their chief and Joanna as their treasurer. From this time on they furnished their own funds; never again did

다시는 한 번도 유다로부터 기금을 조달 받지 않았다.

여인들이 회당에 있는 본당(本堂)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여인용 회당에 한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 선생들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예수가 그들을 복음의 교사와 일꾼으로 이들 10명의 여인들을 별도로 정하면서 임무를 부여했던 사건은 모든 여성들을 그 언제나 자유롭게 만든 해방 선언이었다. 더 이상 남성이 여성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뒤진 열등자로 여길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12사도들에게까지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여러 차례 주(主)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고, 자유로운 자도 매인 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들 열 명의 여인들을 종교 선생들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할 것을 제안하였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전 나라가 술렁대었고, 예수의 적들은 이 기회를 예수를 비난할 큰 구실로 삼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복음을 믿는 여자 신도들이 그들의 선택된 자매들을 견고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종교적인 일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때늦은 인정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세(後世)의 세대에 가서 그들이 다시 옛날의 관례로 되돌아 가버리긴 하였지만, 이렇게 당연한 인식을 가져다 준, 이 여성 해방은 주(主)가 떠나신 후에도 사도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천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를 통하여 여성 교사들과 사명 활동자들은 여성 집사로 불렸고 일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제로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없었으며, 그것의 실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they draw upon Judas for support.

150:1.3 (1679.2) It was most astounding in that day, when women were not even allowed on the main floor of the synagogue (being confined to the women's gallery), to behold them being recognized as authorized teacher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The charge which Jesus gave these ten women as he set them apart for gospel teaching and ministry wa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which set free all women and for all time; no more was man to look upon woman as his spiritual inferior. This was a decided shock to even the twelve apostles. Notwithstanding they had many times heard the Master say that “in the kingdom of heaven there is neither rich nor poor, free nor bond, male nor female, all are equally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they were literally stunned when he proposed formally to commission these ten women as religious teachers and even to permit their traveling about with them. The whole country was stirred up by this proceeding, the enemies of Jesus making great capital out of this move, but everywhere the women believers in the good news stood stanchly behind their chosen sisters and voiced no uncertain approval of this tardy acknowledgment of woman's place in religious work. And this liberation of women, giving them due recognition, was practiced by the apostles immediately after the Master's departure, albeit they fell back to the olden customs in subsequent generations. Throughout the early days of the Christian church women teachers and ministers were called *deaconesses* and were accorded general recognition. But Paul, despite the fact that he conceded all this in theory, never really incorporated it into his own attitude and personally found it difficult to carry out in practice.

제 2 장. 막달라에 들림

벧세다로부터 사도 일행이 여행할 때에 그 여인들은 뒤에서 따라왔다. 회의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항상 연설자의 오른 쪽 앞자리에 앉았다. 점점 더, 여자들이 왕국복음에 대한 신자들이 되어갔었고, 그들이 예수나 혹은 사도 중의 한 사람과 개인적 상담을 갖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의 근원이었으며 난처함은 끝이 없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여인들 중 누구든지 주(主)를 만나고 싶거나 사도들과 상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들은 수잔나에게로 갔으며, 그리고 12명의 여자 전도자들 중의 한 사람과 동행하여, 즉시 주(主)의 현존 앞으로 또는 그의 사도들 중 한 사람 앞으로 가곤 하였다.

여자들의 효용성이 처음으로 실증되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지혜로움을 입증한 것은 막달라

2. THE STOP AT MAGDALA

150:2.1 (1679.3) As the apostolic party journeyed from Bethsaida, the women traveled in the rear. During the conference time they always sat in a group in front and to the right of the speaker. Increasingly, women had become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it had been a source of much difficulty and no end of embarrassment when they had desired to hold personal converse with Jesus or one of the apostles. Now all this was changed. When any of the women believers desired to see the Master or confer with the apostles, they went to Susanna, and in company with one of the twelve women evangelists, they would go at once into the presence of the Master or one of his apostles.

150:2.2 (1680.1) It was at Magdala that the women first demonstrated their usefulness and vindicated the

에서였다. 안드레는 자신의 사도들이 여인들, 특별히 의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여인들과 개인적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동료들에게 상당히 엄한 규율을 제정했었다. 그 일행이 막달라에 갔을 때, 이들 10명의 여자들은 자유롭게 악의 환락가에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설교할 수 있었다. 병자를 방문했을 때, 이 여전도자들은 그들의 고통 받는 자매들을 매우 가깝게 그들의 사명활동 안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들 10명의 여전도사들(나중에는 12명의 여전도사들로 알려짐)의 이곳에서의 사명활동의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가 왕국에 대하여 설득되었다. 연속된 불행과 그리고 그러한 때의 어떤 판단의 실수를 범한 여자를 대하는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태도 때문에, 이 여자는 막달라의 사악한 환락가속에 끌려 떨어졌다. 마르다와 라헬이 마리아에게, 그녀 같은 사람에게도 왕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주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믿었고 그 다음날 배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12명의 여자 전도자들의 이 집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개심한 이후 약 4주 뒤에, 레베카와 함께 그러한 봉사를 위하여, 요타파타에 따로 떨어졌다. 마리아와 레베카는 이 집단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의 땅에서 보낸 일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의 천대받는 자매들을 깨우치고 들어올리기 위하여 신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수고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의 드라마에서 마지막이자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모두는 자리에 있었고,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

제 3 장. 티베리아스에서의 안식일

예수로부터의 지시에 따라서, 안드레는 사도 일행의 안식일 봉사에배를 여자 사도들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새 회당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여자들은 이 특별행사의 책임자로 요안나를 뽑았으며, 헤롯이 펠라에 있는 줄리아스의 관저에 머물려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새 궁전 연회실에서 가졌다. 요안나는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와 다른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여인의 일에 관계된 부분을 성서로부터 낭송하였다.

그 날 밤늦게 예수는 연합된 그 집단에게 “마술과 미신”에 대한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밝고 새로운 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는 일이란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사람의 탄생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별을 최근에 보게 된 안드레가 예수께 이러한 믿음은 근거가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안드레의 질문에 긴 대답을 하면서, 주(主)는 인간의 미신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놓고 깊은 토론에 들어가졌다. 이때에 예수가 말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현대 용어로

wisdom of their choosing. Andrew had imposed rather strict rules upon his associates about doing personal work with women, especially with those of questionable character. When the party entered Magdala, these ten women evangelists were free to enter the evil resorts and preach the glad tidings directly to all their inmates. And when visiting the sick, these women were able to draw very close in their ministry to their afflicted sisters. As the result of the ministry of these ten women (afterward known as the twelve women) at this place, Mary Magdalene was won for the kingdom. Through a succession of misfortunes and in consequence of the attitude of reputable society toward women who commit such errors of judgment, this woman had found herself in one of the nefarious resorts of Magdala. It was Martha and Rachel who made plain to Mary that the doors of the kingdom were open to even such as she. Mary believed the good news and was baptized by Peter the next day.

150:2.3 (1680.2) Mary Magdalene became the most effective teacher of the gospel among this group of twelve women evangelists. She was set apart for such service, together with Rebecca, at Jotapata about four weeks subsequent to her conversion. Mary and Rebecca, with the others of this group, went on through the remainder of Jesus' life on earth, laboring faithfully and effectively for the enlightenment and uplifting of their downtrodden sisters; and when the last and tragic episode in the drama of Jesus' life was being enacted, notwithstanding the apostles all fled but one, these women were all present, and not one either denied or betrayed him.

3. SABBATH AT TIBERIAS

150:3.1 (1680.3) The Sabbath services of the apostolic party had been put in the hands of the women by Andrew, upon instructions from Jesus. This meant, of course, that they could not be held in the new synagogue. The women selected Joanna to have charge of this occasion, and the meeting was held in the banquet room of Herod's new palace, Herod being away in residence at Julias in Perea. Joanna read from the Scriptures concerning woman's work in the religious life of Israel, making reference to Miriam, Deborah, Esther, and others.

150:3.2 (1680.4) Late that evening Jesus gave the united group a memorable talk on “Magic and Superstition.” In those days the appearance of a bright and supposedly new star was regarded as a token indicating that a great man had been born on earth. Such a star having then recently been observed, Andrew asked Jesus if these beliefs were well founded. In the long answer to Andrew's question the Master entered upon a thoroughgoing discussion of the whole subject of human

요약해 볼 수 있다:

1. 하늘에 있는 별들의 경로들은 이 세상의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천문학은 과학의 타당한 추구이지만, 그러나 점성학은 왕국 복음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미신적인 실수 덩어리이다.

2. 최근에 죽인 동물의 내장(內臟)을 조사함으로써 기후, 미래의 사건, 또는 인간 관련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 것도 드러낼 수 없다.

3. 죽은 자들의 영은 그들의 살아있는 가족 또는 살아있던 한 때의 친구와 교통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4. 부적이나 유품은 병을 고치거나 재앙을 막거나 악령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물질적인 모든 수단들에 의지하는 것은 단지 조잡스런 미신일 뿐이다.

5. 제비뽑기에 맡겨 버리는 일은 많은 사소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신성한 뜻을 나타내주도록 고안된 방법은 아니다. 그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물질적 우연의 문제이다. 영적 세상과 교제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수단은, 아들이 쏟아 부은 영과 전제(全在)하는 무한한 영의 영향과 함께 있는, 인류의 영적 자질, 내주 하는 아버지의 영안에 담겨있다.

6. 점, 마법, 요술은 무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미신이며, 또한 마법의 현혹도 마찬가지이다. 마법의 숫자, 좋은 행운의 전조, 불운의 징조를 믿는 것은 단순하고 근거 없는 미신이다.

7. 꿈의 해몽은 대체로 무지하고 공상적인 추론인, 미신적이고 근거가 없는 체계이다. 왕국 복음은 원시 종교의 예언 사제들과 그 어떤 공통점도 있을 수 없다.

8. 선한 영들이거나 악한 영들은 진흙, 나무, 금속으로 만든 물질적 상징 안에 거할 수 없다. 우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물질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9. 마법쟁이들, 요술쟁이들, 마술사들 그리고 마법사들의 실천 관행들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빌론 사람, 그리고 고대(古代) 가나안-사람의 미신으로부터 연유되었다. 부적이나 온갖 종류의 주문은 선한 영의 보호를 얻게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는다.

10. 그는 주문, 시련, 마법, 저주, 표적, 맨드레이크, 매듭진 줄, 그리고 모든 다른 형태의 무지하고 노예적인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비난하였다.

superstition. The statement which Jesus made at this time may be summariz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50:3.3 (1680.5) 1. The courses of the stars in the heavens have nothing whatever to do with the events of human life on earth. Astronomy is a proper pursuit of science, but astrology is a mass of superstitious error which has no plac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150:3.4 (1680.6) 2. The examination of the internal organs of an animal recently killed can reveal nothing about weather, future events, or the outcome of human affairs.

150:3.5 (1680.7) 3. The spirits of the dead do not come back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or their onetime friends among the living.

150:3.6 (1681.1) 4. Charms and relics are impotent to heal disease, ward off disaster, or influence evil spirits; the belief in all such material means of influencing the spiritual world is nothing but gross superstition.

150:3.7 (1681.2) 5. Casting lots, while it may be a convenient way of settling many minor difficulties, is not a method designed to disclose the divine will. Such outcomes are purely matters of material chance. The only means of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world is embraced in the spirit endowment of mankind,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Father, together with the outpoured spirit of the Son and the omnipresent influence of the Infinite Spirit.

150:3.8 (1681.3) 6. Divination, sorcery, and witchcraft are superstitions of ignorant minds, as also are the delusions of magic. The belief in magic numbers, omens of good luck, and harbingers of bad luck, is pure and unfounded superstition.

150:3.9 (1681.4) 7.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s largely a superstitious and groundless system of ignorant and fantastic speculation. The gospel of the kingdom must have nothing in common with the soothsayer priests of primitive religion.

150:3.10 (1681.5) 8. The spirits of good or evil cannot dwell within material symbols of clay, wood, or metal; idols are nothing more than the material of which they are made.

150:3.11 (1681.6) 9. The practices of the enchanters, the wizards, the magicians, and the sorcerers, were derived from the superstitions of the Egyptians, the Assyrians, the Babylonians, and the ancient Canaanites. Amulets and all sorts of incantations are futile either to win the protection of good spirits or to ward off supposed evil spirits.

150:3.12 (1681.7) 10. He exposed and denounced their belief in spells, ordeals, bewitching, cursing, signs, mandrakes, knotted cords, and all other forms of ignorant and enslaving superstition.

제 4 장. 사도들을 둘씩 내보내다

다음날 저녁에 12사도들, 요한의 사도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여자 집단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예수가 말하였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것을 너희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추수를 주관하는 주님께 그가 추수할 일꾼을 발으로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내가 남아서 새로 된 교사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동안, 먼저 된 교사들을 둘씩 내보내어, 아직은 형편이 좋고 평화로울 때에 그들이 왕국 복음을 전도하면서 재빨리 갈릴리 전역을 통과하도록 하려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으로 내보낼 한 쌍씩의 사도들을 정해주었는데,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빌립과 나다니엘,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유다 알페오, 시몬 켈로페와 가롯 유다로 짝을 이루어 나갔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12명의 사도들을 다시 만날 기일을 정해주시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번의 임무에서는 이방인의 어떤 도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며,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왕국 복음을 설교할 것이며,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해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며, 하인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고, 하인이 그의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어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의 연관-동료라고 감히 말하였다면, 그 집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사적으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혜롭게 공공연히 설교해라. 내가 방 안에서 드러내 보인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이 약속의 계절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들인 동시에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파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 마라. 오히려 몸을 격려하고 그리고 혼을 구할 수 있는 그분에게 너희의 신뢰를 바쳐라.

“참새 두 마리가 한 페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느님은 그 중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단언한다. 그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서 평화와 선한 뜻을 선포해라. 그러나 현혹되지 마라—평화가 언제나 너희의 설교에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사람이 나의 선물을 거부할 때에는 분리와 혼란을 가져온다. 가족 전부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평화가 그 집에 깃들인다. 그러나 가족의 일부만 왕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 그러한 분리가 단지 슬픔과 비극

4. SENDING THE APOSTLES OUT TWO AND TWO

150:4.1 (1681.8) The next evening, having gathered together the twelve apostles, the apostles of John, and the newly commissioned women's group, Jesus said: “You see for yourselves that the harvest is plenteous, but the laborers are few. Let us all, therefore, pray the Lord of the harvest that he send forth still more laborers into his fields. While I remain to comfort and instruct the younger teachers, I would send out the older ones two and two that they may pass quickly over all Galilee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le it is yet convenient and peaceful.” Then he designated the pairs of apostles as he desired them to go forth, and they were: Andrew and Peter, James and John Zebedee, Philip and Nathaniel, Thomas and Matthew, James and Judas Alpheus,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150:4.2 (1681.9) Jesus arranged the date for meeting the twelve at Nazareth, and in parting, he said: “On this mission go not to any city of the gentiles, neither go into Samaria, but go instead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proclaim the saving truth that man is a son of God. Remember that the disciple is hardly above his master nor a servant greater than his lord. It is enough for the disciple to be equal with his master and the servant to become like his lord. If some people have dared to call the master of the house an associate of Beelzebub, how much more shall they so regard those of his household! But you should not fear these unbelieving enemies. I declare to you that there is nothing covered up that is not going to be revealed;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shall not be known. What I have taught you privately, that preach with wisdom in the open. What I have revealed to you in the inner chamber, that you are to proclaim in due season from the housetops. And I say to you, my friends and disciples, be not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the body, but who are not able to destroy the soul; rather put your trust in Him who is able to sustain the body and save the soul.

150:4.3 (1682.1)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And yet I declare tha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in God's sight. Know you not tha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therefore; you are of more value than a great many sparrows. Be not ashamed of my teaching; go forth proclaiming peace and good will, but be not deceived — peace will not always attend your preaching.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but when men reject my gift, division and turmoil result. When all of a family receive the gospel of the kingdom, truly peace abides in that house; but when some of the family enter the kingdom and others reject the gospel, such division can

만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 간에 서로 배척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너희가 온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가 선언하는데, 복음보다 자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12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主)가 예정한 일정(日程)대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을 나사렛의 회합에서 만날 때까지는 다시 함께 모이지 않았다.

제 5 장.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슈넬에서 어느 저녁시간에, 요한의 사도들은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사도들은 둘씩 짝을 지어 나간 후, 주(主)가 12명의 여자들과 더불어 야곱의 지도 아래에 있던 12명의 젊은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라헬이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물었다: “주(主)여, 다른 여인들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였다:

“남자와 여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대답하라, 신성한 용서를 받아들이라; 왕국의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라. 내주하는 하느님의 영을 신앙으로 인지하고, 그의 받아들이미가 너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든다. 성서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올바름과 강한 힘을 갖는다.’라는 말을 읽지 않았느냐?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올바름은 가까이 있다; 나의 구원이 보내어 나가 있으니, 나의 팔이 나의 백성을 감쌀 것이다.’ ‘나의 혼이 나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올바름의 예복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 우리의 올바름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을 읽지 않았느냐? ‘자아-정의로움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신성한 올바름과 영원한 구원의 예복으로 나의 아들을 입히라.’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진실이다.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무료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 존속하는 데는 진보—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수이다.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며,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계시된다. 너희 편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미는 너희를 신성한 본성,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한편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신앙으로 너희는 의로워지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으로 너희는 진보적이고 신성한 완전성의 길에서 영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땔기세택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바로 이 신앙이 사람의 아들들을 구원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이 구원을 좀 더 실체

produce only sorrow and sadness. Labor earnestly to save the whole family lest a man's foes become those of his own household. But, when you have done your utmost for all of every family, I declare to you that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this gospel is not worthy of the kingdom.”

150:4.4 (1682.2) When the twelve had heard these words, they made ready to depart. And they did not again come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ir assembling at Nazareth to meet with Jesus and the other disciples as the Master had arranged.

5. WHAT MUST I DO TO BE SAVED?

150:5.1 (1682.3) One evening at Shunem, after John's apostles had returned to Hebron, and after Jesus' apostles had been sent out two and two, when the Master was engaged in teaching a group of twelve of the younger evangelists who were laboring under the direction of Jacob, together with the twelve women, Rachel asked Jesus this question: “Master, what shall we answer when women ask us, What shall I do to be saved?” When Jesus heard this question, he answered:

150:5.2 (1682.4) “When men and women ask what shall we do to be saved, you shall answer,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ccept divine forgiveness. By faith recognize the indwelling spirit of God, whose acceptance makes you a son of God.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it says, ‘In the Lord have I righteousness and strength.’ Also where the Father says, ‘My righteousness is near; my salvation has gone forth, and my arms shall enfold my people.’ ‘My soul shall be joyful in the love of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 and has covered me with the robe of his righteousness.’ Have you not also read of the Father that his name ‘sha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ness.’ ‘Take away the filthy rags of self-righteousness and clothe my son with the robe of divine righteousness and eternal salvation.’ It is forever true,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is wholly free, but progress — growth in grace — is essential to continuance therein.

150:5.3 (1682.5) “Salvation is the gift of the Father and is revealed by his Sons. Acceptance by faith on your part makes you a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a son or a daughter of God. By faith you are justified; by faith are you saved; and by this same faith are you eternally advanced in the way of progressive and divine perfection. By faith was Abraham justified and made aware of salvation by the teachings of Melchizedek. All down through the ages has this same faith saved the sons of men, but now has a Son come forth from the Father to make salvation more real and acceptable.”

적이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셨을 때, 거기에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기쁨이 향유되었으며, 그들 모두가 이어진 여러 날 동안 새 힘과 다시 새로워진 에너지와 열광으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계획에서 자신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도 더 기쁨을 향유하였다.

자신의 말을 마치시면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올바름을 벌어들일 수 없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올바름은 왕국에서 아들관계의 영으로-태어난 생명이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너희가 올바른 일생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미 구원되었고, 아들관계를 하느님 선물로 인식했고, 그리고 왕국의 봉사를 이 세상 일생에서의 최극 기쁨으로 하고 있기에 너희가 올바른 일생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선함의 계시인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죄라고 알려진 모든 것을 회개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아들관계의 실현은 죄에 대한 욕망과 양립할 수 없다. 왕국을 믿는 자들은 올바름을 열망하고 신성한 완전을 갈망한다.”

150:5.4 (1683.1) When Jesus had left off speaking, there was great rejoicing among those who had heard these gracious words, and they all went on in the days that followe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with new power and with renewed energy and enthusiasm. And the women rejoiced all the more to know they were included in these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n earth.

150:5.5 (1683.2) In summing up his final statement, Jesus said: “You cannot buy salvation; you cannot earn righteousness.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and righteousness is the natural fruit of the spirit-born life of sonship in the kingdom. You are not to be saved because you live a righteous life; rather is it that you live a righteous life because you have already been saved, have recognized sonship as the gift of God and service in the kingdom as the supreme delight of life on earth. When men believe this gospel, which is a revelation of the goodness of God, they will be led to voluntary repentance of all known sin. Realization of son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desire to sin. Kingdom believers hunger for righteousness and thirst for divine perfection.”

제 6 장. 저녁 수업

저녁 토론에서 예수는 많은 주제(主題)에 대해 말하였다. 이 여행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그들 모두가 나사렛에서 재(再)연합되기 전—, 그가 “하느님의 사랑,” “꿈과 이상,” “적개심,” “겸손함과 온순함,” “용기와 충성심,” “음악과 경배,” “봉사와 순종,” “자만과 오만,” “회개와 용서의 관계,” “평화와 완전,” “악한 대화와 질투,” “악, 죄, 유혹,” “의심과 불신,” “지혜와 경배”에 관해 말하였다. 먼저 된 선배 사도들을 떠나보내고, 보다 젊은이들 남자들과 여자들의 집단은 좀 더 자유롭게 주(主)와 함께 이러한 토론에 몰입하였다.

12명의 전도자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와 2-3 일을 지내신 후에, 예수는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내려고 자리를 옮기곤 하였으며, 다윗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모든 사명활동자들의 근황과 행적들에 대한 소식을 항상 듣고 계셨다. 여전도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다. 각 집단은 메신저 봉사를 통하여 그 여행의 진행 상황을 들어 알고 있었고, 다른 집단들로부터 오는 소식은 언제나 멀리 퍼져서 따로 떨어져 있던 전체 사명활동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었다.

그들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12사도들은 그 전도자들 그리고 여자들의 집단과 함께, 3월 4일 금

6. THE EVENING LESSONS

150:6.1 (1683.3) At the evening discussions Jesus talked upon many subjects. During the remainder of this tour — before they all reunited at Nazareth — he discussed “The Love of God,” “Dreams and Visions,” “Malice,” “Humility and Meekness,” “Courage and Loyalty,” “Music and Worship,” “Service and Obedience,” “Pride and Presumption,” “Forgiveness in Relation to Repentance,” “Peace and Perfection,” “Evil Speaking and Envy,” “Evil, Sin, and Temptation,” “Doubts and Unbelief,” “Wisdom and Worship.” With the older apostles away, these younger groups of both men and women more freely entered into these discussions with the Master.

150:6.2 (1683.4) After spending two or three days with one group of twelve evangelists, Jesus would move on to join another group, being informed as to the whereabouts and movements of all these workers by David’s messengers. This being their first tour, the women remained much of the time with Jesus. Through the messenger service each of these groups was kept fully informed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tour, and the receipt of news from other groups was always a source of encouragement to these scattered and separated workers.

150:6.3 (1683.5) Before their separation it had been arranged that the twelve apostles, together with

요일에 주(主)와 만나기 위하여 나사렛에 모여야만 된다는 것이 계획되었다. 따라서 이때가 되자,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전 지역으로부터,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이 다양한 집단들이 나사렛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중반 경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데, 미리 도착한 사람들에게 의해 준비된 그리고 그 도시의 북쪽 고원 지역에 자리를 잡은 그 야영지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대중 사명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예수가 나사렛을 방문한 첫 번째였다.

제 7 장. 나사렛에서의 체류

금요일 오후에 예수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나사렛을 거니셨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집과 목공소를 지나갔으며, 소년 시절에 그렇게 많이 즐겼던 언덕에서 반시간 정도 보내셨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래로, 사람의 아들이 그의 혼속에서 이때처럼 인간 감정의 홍수로 격동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동안,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왔던, 해 질 무렵을 알리는 귀에 익은 나팔소리를 들었다. 야영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그가 다녔던 학교인 그 회당으로 걸어 내려갔고 그의 마음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날 일찍 예수는 회당의 통치자에게 도마를 보내어 안식일 아침 봉사에배에 자기 가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경건함과 올바른 삶에 대하여 좋은 평판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이 동네는 가까이에 있는 세포리의 낮은 도덕 기준에 의해 점점 더 오염되었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동안 내내, 나사렛에서는 그에 관하여 의견이 갈려 있었었다. 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을 때 많은 분개심이 있었다. 나사렛의 주민들이 이전에 자기들과 함께 하였던 목수의 많은 업적을 들었을 때, 그들은 초기 설교 여행에서 그가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매우 기분이 상해 있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의 명성을 들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도시에서는 아무런 위대한 업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몇 달 동안 많이 토론했었으나, 그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主)는 자신이 귀향을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대감을 가진, 혹평하는 분위기에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적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지낼 것이며,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를 괴롭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만들려고 수많은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the evangelists and the women's corps, should assemble at Nazareth to meet the Master on Friday, March 4. Accordingly, about this time, from all parts of central and southern Galilee these various groups of apostles and evangelists began moving toward Nazareth. By midafternoon, Andrew and Peter, the last to arrive, had reached the encampment prepared by the early arrivals and situated on the highlands to the north of the city. And this was the first time Jesus had visited Nazareth since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7. THE SOJOURN AT NAZARETH

150:7.1 (1683.6) This Friday afternoon Jesus walked about Nazareth quite unobserved and wholly unrecognized. He passed by the home of his childhood and the carpenter shop and spent a half hour on the hill which he so much enjoyed when a lad. Not since the day of his baptism by John in the Jordan had the Son of Man had such a flood of human emotion stirred up within his soul. While coming down from the mount, he heard the familiar sounds of the trumpet blast announcing the going down of the sun, just as he had so many, many times heard it when a boy growing up in Nazareth. Before returning to the encampment, he walked down by the synagogue where he had gone to school and indulged his mind in many reminiscences of his childhood days. Earlier in the day Jesus had sent Thomas to arrange with the ruler of the synagogue for his preaching at the Sabbath morning service.

150:7.2 (1684.1) The people of Nazareth were never reputed for piety and righteous living. As the years passed, this village became increasingly contaminated by the low moral standards of nearby Sepphoris. Throughout Jesus' youth and young manhood there had been a division of opinion in Nazareth regarding him; there was much resentment when he moved to Capernaum. While the inhabitants of Nazareth had heard much about the doings of their former carpenter, they were offended that he had never included his native village in any of his earlier preaching tours. They had indeed heard of Jesus' fame, but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were angry because he had done none of his great works in the city of his youth. For months the people of Nazareth had discussed Jesus much, but their opinions were, on the whole, unfavorable to him.

150:7.3 (1684.2) Thus did the Master find himself in the midst of, not a welcome homecoming, but a decidedly hostile and hypercritical atmosphere. But this was not all. His enemies, knowing that he was to spend this Sabbath day in Nazareth and supposing that he would speak in the synagogue, had hired numerous rough and uncouth men to harass him and in every way possible make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의 어린 시절의 카잔 스승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수의 옛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나사렛을 떠나갔고, 젊은 세대들은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의 명성에 분개하기 쉬웠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 가족에게 바쳤던 초기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결혼한 여동생들을 방문하지 않은 그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를 향한 예수의 가족의 태도 역시 시민들의 이 불친절한 감정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 빨리 걷는다고 까지 비난하였다.

제 8 장. 안식일 봉사예배

이 안식일은 날씨가 좋았으며, 친구들과 적들로 구성된 모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도시의 이전(以前)시민이었던 그의 강연을 들으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도 수행원들이 회당에 함께 가지 않고 남아 있어야만 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다. 젊은 시절에 예수가 이 경배의 장소에서 종종 설교했었던 대로, 이 날 아침에도 회당의 통치자가 성서 본문을 읽을 신성한 문서들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넘겨주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누구도 그 두루마리가, 그가 이 회당에 기증했던 바로 그 사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 날 있었던 그 예배봉사는 예수가 소년 시절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되었다. 그는 회당의 통치자와 함께 연단에 올라갔고, 그 예배봉사는 두 개의 기도를 낭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복되도다, 세상의 왕이신 주님, 당신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화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나이다; 당신은 자비로써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며, 선(善) 안에서 매일 매일의 모든 날에 창조의 업적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숨씨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의 찬미를 위해 그가 만드신 빛을-내리는 그 빛으로 우리의 하느님 주님께서 복되시다. 셀라. 복되시다, 빛을 지으신 주님 우리 하느님이시여.”

잠시 쉬었다가 그들은 다시 기도하였다: “주님 우리 하느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왕이신 그가, 그 안에서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넘치는 많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나이다. 그들에게 일생의 규례를 가르친 하느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사 율법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의 계명에 밀착하게 만들어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도록 우리가슴을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있게 하시고, 끝남이 없는 세상에 있게 하여 주소서. 당신은 구원을 장만

trouble.

150:7.4 (1684.3) Most of the older of Jesus' friends, including the doting chazan teacher of his youth, were dead or had left Nazareth, and the younger generation was prone to resent his fame with strong jealousy. They failed to remember his early devotion to his father's family, and they were bitter in their criticism of his neglect to visit his brother and his married sisters living in Nazareth. The attitude of Jesus' family toward him had also tended to increase this unkind feeling of the citizenry. The orthodox among the Jews even presumed to criticize Jesus because he walked too fast on the way to the synagogue this Sabbath morning.

8. THE SABBATH SERVICE

150:8.1 (1684.4) This Sabbath was a beautiful day, and all Nazareth, friends and foes, turned out to hear this former citizen of their town discourse in the synagogue. Many of the apostolic retinue had to remain without the synagogue; there was not room for all who had come to hear him. As a young man Jesus had often spoken in this place of worship, and this morning, when the ruler of the synagogue handed him the roll of sacred writings from which to read the Scripture lesson, none present seemed to recall that this was the very manuscript which he had presented to this synagogue.

150:8.2 (1684.5) The services on this day were conducted just as when Jesus had attended them as a boy. He ascended the speaking platform with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d the service was begun by the recital of two prayers: “Blessed is the Lord, King of the world, who forms the light and creates the darkness, who makes peace and creates everything; who, in mercy, gives light to the earth and to those who dwell upon it and in goodness, day by day and every day, renews the works of creation. Blessed is the Lord our God for the glory of his handiworks and for the light-giving lights which he has made for his praise. Selah. Blessed is the Lord our God, who has formed the lights.”

150:8.3 (1685.1) After a moment's pause they again prayed: “With great love has the Lord our God loved us, and with much overflowing pity has he pitied us, our Father and our King, for the sake of our fathers who trusted in him. You taught them the statutes of life; have mercy upon us and teach us. Enlighten our eyes in the law; cause our hearts to cleave to your commandments; unite our hearts to love and fear your name, and we shall not be put to shame, world without end. For you are a God who prepares salvation, and us have you chosen from among all nations and tongues, and in truth have you brought us near your great name

하시는 하느님이요, 우리를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로부터 선택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크신 이름에 가까이 있게 하였습니다—셀라—이는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 되심을 사랑으로 찬양케 하였음이나이다. 복되시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주님이시여.”

이 때 회중은 유대인의 신경(信經)인 쉬마를 암송하였다. 율법의 여러 부분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이 의식은 경배자들 자신이 하늘의 왕국의 멍에를 짊어졌음을, 마찬가지로 낮과 밤에 적용되는 계명의 멍에도 또한 짊어졌음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도가 있었다: “진실로 당신은 야훼, 우리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조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조상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나이다. 당신의 이름은 영속으로부터 계시고, 당신 이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나이다. 구원받은 그들이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당신의 이름에 바쳤으니, 그들이 다 함께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기를, 야훼가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도다. 복되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서 회당 통치자는 언약궤, 거룩한 글이 들어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19개의 찬양 기도문인 축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귀빈이 그의 강연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 봉사예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래서 축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낭송되었다. 처음 것은 이러하였다: “주님 우리 하느님은 복되시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크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느님,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조상들에게 한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도다. 오, 왕이시여, 조력자이시여, 구원자시여, 방패시여! 복되시다, 오, 야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그 다음은 마지막 축도였다: “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언제나 보내주소서. 당신은 모든 평화의 왕과 주님이 되심이나이다. 당신은 어느 때 어느 시든지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나이다. 복되시다 야훼여,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평화로 복되게 하시나이다.” 회중은 축도를 낭송할 때 회당 통치자를 바라보지 않는다. 축도 후에 그는 형식을 벗어나 그 날의 경우에 적합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끝나자 온 회중은 모두 같이 아멘을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카잔은 언약궤로 가서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예수께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성서의 본문을 읽게 하였다. 관례에 따르면 일곱 사람이 적어도 율법을 세 구절씩 읽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날은 그 실천 관행을 접어두고 방문객이 자기가

— selah — that we may lovingly praise your unity. Blessed is the Lord, who in love chose his people Israel.”

150:8.4 (1685.2) The congregation then recited the Shema, the Jewish creed of faith. This ritual consisted in repeating numerous passages from the law and indicated that the worshipers took upon themselves the yoke of the kingdom of heaven, also the yoke of the commandments as applied to the day and the night.

150:8.5 (1685.3) And then followed the third prayer: “True it is that you are Yahweh, our God and the God of our fathers; our King and the King of our fathers; our Savior and the Savior of our fathers; our Creator and the rock of our salvation; our help and our deliverer. Your name is from everlasting, and there is no God beside you. A new song did they that were delivered sing to your name by the seashore; together did all praise and own you King and say, Yahweh shall reign, world without end. Blessed is the Lord who saves Israel.”

150:8.6 (1685.4) The ruler of the synagogue then took his place before the ark, or chest, containing the sacred writings and began the recitation of the nineteen prayer eulogies, or benedictions. But on this occasion it was desirable to shorten the service in order that the distinguished guest might have more time for his discourse; accordingly, only the first and last of the benedictions were recited. The first was: “Blessed is the Lord our God, and the God of 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the great, the mighty, and the terrible God, who shows mercy and kindness, who creates all things, who remembers the gracious promises to the fathers and brings a savior to their children’s children for his own name’s sake, in love. O King, helper, savior, and shield! Blessed are you, O Yahweh, the shield of Abraham.”

150:8.7 (1685.5) Then followed the last benediction: “O bestow on your people Israel great peace forever, for you are King and the Lord of all peace. And it is good in your eyes to bless Israel at all times and at every hour with peace. Blessed are you, Yahweh, who blesses his people Israel with peace.” The congregation looked not at the ruler as he recited the benedictions. Following the benedictions he offered an informal prayer suitable for the occasion, and when this was concluded, all the congregation joined in saying amen.

150:8.8 (1685.6) Then the chazan went over to the ark and brought out a roll, which he presented to Jesus that he might read the Scripture lesson. It was customary to call upon seven persons to read not less than three verses of the law, but this

선택하는 구절의 말씀을 읽게 하였다. 두루마리를 받아든 예수는 일어서서 신명기에서 읽기 시작하였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계명은 너로부터 감추어지지 않았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하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하도록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의 말씀은 내가 알고 복종할 수 있도록, 네게 심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 심지어 너의 현존 안에 그리고 네 가슴에도 있다.”

그가 율법으로부터 읽기를 끝내고, 이사야의 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영이 내게 계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라. 나를 보내 사, 간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꺾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받아드릴 만한 주님의 때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가 책을 닫고 그것을 회당 통치자에게 돌려주신 후, 앉아서 사람들에게 강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음의 말로 시작하였다: “이 글들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거의 15분 동안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에 관해 강연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으며, 그의 정중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하였다.

정식 예배봉사가 끝난 후에 설교자가 남아 있으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회당의 규례였다. 따라서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가 질문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로 걸어 내려가셨다. 이 집단에는 소동을 일으키려는데 마음이 골몰해 있던 많은 난폭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 군중의 주위에는 예수께 문제를 일으키려고 고용된 저질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때 밖에 남아 있던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회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문제가 일어날 기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다. 그들은 주(主)가 벗어나도록 안내하려고 애썼지만, 주(主)는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다.

제 9 장. 나사렛의 배척

예수는, 자신이 회당 안에 그의 적들의 큰 인파로 둘러싸여있고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흩어져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무뢰한 질문과 악의를 품은 농담에 그가 다소간 재미있도록 대답하였다: “그렇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자 바로 그 목수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의사가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한다.’는 속담을 일깨워 주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고 다그

practice was waived on this occasion that the visitor might read the lesson of his own selection. Jesus, taking the roll, stood up and began to read from Deuteronomy: “For this commandment which I give you this day is not hidden from you, neither is it far off. It is not in heaven, that you should say, who shall go up for us to heaven and bring it down to us that we may hear and do it? Neither is it beyond the sea, that you should say, who will go over the sea for us to bring the commandment to us that we may hear and do it? No, the word of life is very near to you, even in your presence and in your heart, that you may know and obey it.”

150:8.9 (1686.1) And when he had ceased reading from the law, he turned to Isaiah and began to read: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tiding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the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bruised and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150:8.10 (1686.2) Jesus closed the book and, after handing it back to the ruler of the synagogue, sat down and began to discourse to the people. He began by saying: “Today are these Scriptures fulfilled.” And then Jesus spoke for almost fifteen minutes on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Many of the people were pleased with the discourse, and they marveled at his graciousness and wisdom.

150:8.11 (1686.3) It was customary in the synagogu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ormal service, for the speaker to remain so that those who might be interested could ask him questions. Accordingly, on this Sabbath morning Jesus stepped down into the crowd which pressed forward to ask questions. In this group were many turbulent individuals whose minds were bent on mischief, while about the fringe of this crowd there circulated those debased men who had been hired to make trouble for Jesus. Many of the disciples and evangelists who had remained without now pressed into the synagogue and were not slow to recognize that trouble was brewing. They sought to lead the Master away, but he would not go with them.

9. THE NAZARETH REJECTION

150:9.1 (1686.4) Jesus found himself surrounded in the synagogue by a great throng of his enemies and a sprinkling of his own followers, and in reply to their rude questions and sinister banterings he half humorously remarked: “Yes, I am Joseph’s son; I am the carpenter, and I am not surprised that you remind me of the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and that you challenge me to do in Nazareth what you have heard I did at

치는 일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성서에서 '선지자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명예를 받지 않음이 없다.'는 선언을 이렇게 또한 증거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환기시키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난폭하게 떠밀었고 그리고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당신의 형제는 평범한 일꾼이며, 당신의 여동생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 그들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당신에 관한 큰일들을 듣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 돌아오고 나서 당신이 행한 그 어떤 이적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자라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 모두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를 큰 기쁨으로 향유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은총으로 인한 변환은 은혜를 받는 자들의 살아 있는 신앙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예수는 그 무리를 온화하게 다루고 난폭한 적들까지도 효과적으로 공격수단을 버리게 하였을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 중의 하나인 시몬 켈로메가, 젊은 전도자 중의 하나인 나호르의 도움을 받아, 이 와중에 군중 속에서 예수의 친구들을 함께 모았었고, 그리고는 도전적인 태도를 내보이면서 주인의 적들에게 죽으려가하는 경고를 사용하였었던 전략적인 큰 실책 때문이었다. 예수는 항상 사도들에게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진하여 주(主)라 부르는, 사랑하는 선생이 그런 식으로 무례함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한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격렬하고 강렬한 분개심을 내보였는데, 이 모두가 오직, 이 신앙심 없고 무례한 군중 안에 있는 폭도 영을 자극하여 깨우는데 도왔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돈으로 고용된 자들의 지휘아래, 이 무뢰한들은 예수를 붙잡아 회당 밖으로 서둘러 끌고 나와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가파른 언덕의 벼랑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를 벼랑 끝 너머 아래로 그가 죽도록 떠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그를 벼랑 끝에서 밀려고 했을 때, 예수가 갑자기 그를 잡고 있는 자에게 몸을 돌려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팔을 조용히 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갈라졌고, 그리고 아무 괴롭힘도 없이 지나가도록 그를 허락하였을 때, 예수의 친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의 수행을 받으며, 그들의 야영지로 갔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돌이켜 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지도에 따라 다음날 아침 일찍 가벼이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 밤에 준비를 마쳤다. 세 번째 대중 설교 여행의 이 난폭한 종결은 모든 예수의 추종자들이 침착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주(主) 가르침중의 일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국이 오직 많은 슬픔과 쓰디 쓴 실망을 통해서만 올

Capernaum; but I call you to witness that even the Scriptures declare that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save in his own country and among his own people.'"

150:9.2 (1686.5) But they jostled him and, pointing accusing fingers at him, said: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the people of Nazareth; you moved away from us, but your brother is a common workman, and your sisters still live among us. We know your mother, Mary. Where are they today? We hear big things about you, but we notice that you do no wonders when you come back." Jesus answered them: "I love the people who dwell in the city where I grew up, and I would rejoice to see you 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doing of the works of God is not for me to determine. The transformations of grace are wrought in response to the living faith of those who are the beneficiaries."

150:9.3 (1686.6) Jesus would have good-naturedly managed the crowd and effectively disarmed even his violent enemies had it not been for the tactical blunder of one of his own apostles, Simon Zelotes, who, with the help of Nahor, one of the younger evangelists, had meanwhile gathered together a group of Jesus' friends from among the crowd and, assuming a belligerent attitude, had served notice on the enemies of the Master to go hence. Jesus had long taught the apostles that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but his followers were not accustomed to seeing their beloved teacher, whom they so willingly called Master, treated with such discourtesy and disdain. It was too much for them, and they found themselves giving expression to passionate and vehement resentment, all of which only tended to arouse the mob spirit in this ungodly and uncouth assembly. And so, under the leadership of hirelings, these ruffians laid hold upon Jesus and rushed him out of the synagogue to the brow of a near-by precipitous hill, where they were minded to shove him over the edge to his death below. But just as they were about to push him over the edge of the cliff, Jesus turned suddenly upon his captors and, facing them, quietly folded his arms. He said nothing, but his friends were more than astonished when, as he started to walk forward, the mob parted and permitted him to pass on unmolested.

150:9.4 (1687.1) Jesus, followed by his disciples, proceeded to their encampment, where all this was recounted. And they made ready that evening to go back to Capernaum early the next day, as Jesus had directed. This turbulent ending of the third public preaching tour had a sobering effect upon all of Jesus' followers. They were beginning to realize the meaning of some of the Master's teachings; they were awaking to the fact that the

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나사렛을 떠났으며, 여러 다른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그들 모두가 마침내 3월 10일 목요일 정오에 벳세다에 집합하였다. 그들은 열광적이고 모든 것을 정복한 승리의 십자군으로서가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난 진리의 복음 설교자들로서 침착하고 진지한 집단으로 함께 모였다.

kingdom would come only through much sorrow and bitter disappointment.

150:9.5 (1687.2) They left Nazareth this Sunday morning, and traveling by different routes, they all finally assembled at Bethsaida by noon on Thursday, March 10. They came together as a sober and serious group of disillusioned preachers of the gospel of truth and not as an enthusiastic and all-conquering band of triumphant crusaders.

제 151 편 바닷가에 머물면서 가르침

⇨ 150

유랜시아 책

15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1 편 바닷가에 머물면서 가르침

섹션

소개

제 1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 2 장. 비유의 해석

제 3 장. 비유에 대해 좀 더 말하다

제 4 장. 해변에서 비유를 좀 더 말씀 하다

제 5 장. 게라사를 방문하다

제 6 장. 게라사의 미치광이

PAPER 151

TARRYING AND TEACHING BY THE SEASID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arable of the Sower

2.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3. More about Parables

4. More Parables by the Sea

5. The Visit to Kheresa

6. The Kheresa Lunatic

소개

3월 10일이 되기까지,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집단이 벳세다에 모였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며, 한편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석하여,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는 안식일에 대부분 시간을 혼자 언덕에서 지내었다. 토요일 밤에 주(主)가 한 시간 이상이나 “역경의 교훈과 실패의 영적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한 가르침이었으며,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가 가르쳤던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예수는 최근에 나사렛에서 받았던 배척으로 인한 슬픔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도들은 그의 평상시의 유쾌한 모습에 야릇한 슬픔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으며, 베드로는 새 전도자들의 안녕과 지도에 관련된 책임들을 맡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여전도자들은 가버나움과 그 곳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와 동네들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INTRODUCTION

151:0.1 (1688.1) BY MARCH 10 all of the preaching and teaching groups had forgathered at Bethsaida. Thursday night and Friday many of them went out to fish, while on the Sabbath day they attended the synagogue to hear an aged Jew of Damascus discourse on the glory of father Abraham. Jesus spent most of this Sabbath day alone in the hills. That Saturday night the Master talked for more than an hour to the assembled groups on “The mission of adversity and the spiritual value of disappointment.” This was a memorable occasion, and his hearers never forgot the lesson he imparted.

151:0.2 (1688.2) Jesus had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sorrow of his recent rejection at Nazareth; the apostles were aware of a peculiar sadness mingled with his usual cheerful demeanor. James and John were with him much of the time, Peter being more than occupied with the many responsibilities having to do with the welfare and direction of the new corps of evangelists. This time of waiting before starting for the Passover at Jerusalem, the women spent in visiting from house to house, teaching the gospel, and ministering to the sick in Capernaum and the

surrounding cities and villages.

제 1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무렵에 예수는 처음으로 그의 주변에 모여 드는 군중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그 전날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일요일 아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다. 그래서 예수는 해변으로 가서 그가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안드레와 베드로의 옛날 고기잡이배에 혼자 앉아서 왕국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한 명상을 하였다. 그러나 주(主)가 혼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곧 가버나움과 근처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그날 아침 10시가 되자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배 가까이 있는 해변에 모여 주목을 받으려고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베드로가 이 때 일어나서 배로 나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여, 제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많은 비유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이었다. 이 배에는 높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예수가 거기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는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 모여 있던 군중들에게 말씀하였다. 베드로가 몇 마디를 한 후, 예수가 말씀하였다:

“어느 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발밑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들은 땅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나오자마자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어떤 씨들은 가시넝쿨에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자 그것이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결실을 맺었고 어떤 것들은 삼십 배, 어떤 것들은 육십 배, 또 어떤 것들은 백 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말하기를 완결하시면서, 군중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였다.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하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날 밤 세베대의 정원에서 마태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던 모호한 말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인내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를 가르쳤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알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식별력 없는 군중이나 우리를 파괴시키려

1. THE PARABLE OF THE SOWER

151:1.1 (1688.3) About this time Jesus first began to employ the parable method of teaching the multitudes that so frequently gathered about him. Since Jesus had talked with the apostles and others long into the night, on this Sunday morning very few of the group were up for breakfast; so he went out by the seaside and sat alone in the boat, the old fishing boat of Andrew and Peter, which was always kept at his disposal, and meditated on the next move to be made in the work of extending the kingdom. But the Master was not to be alone for long. Very soon the people from Capernaum and near-by villages began to arrive, and by ten o'clock that morning almost one thousand were assembled on shore near Jesus' boat and were clamoring for attention. Peter was now up and, making his way to the boat, said to Jesus, "Master, shall I talk to them?" But Jesus answered, "No, Peter, I will tell them a story." And then Jesus began the recital of the parable of the sower, one of the first of a long series of such parables which he taught the throngs that followed after him. This boat had an elevated seat on which he sat (for it was the custom to sit when teaching) while he talked to the crowd assembled along the shore. After Peter had spoken a few words, Jesus said:

151:1.2 (1688.4) "A sower went forth to sow, and it came to pass as he sowed that some seed fell by the wayside to be trodden underfoot and devoured by the birds of heaven. Other seed fell upon the rocky places where there was little earth, and immediately it sprang up because there was no depth to the soil, but as soon as the sun shone, it withered because it had no root whereby to secure moisture. Other seed fell among the thorns, and as the thorns grew up, it was choked so that it yielded no grain. Still other seed fell upon good ground and, growing, yielded, some thirtyfold, some sixtyfold, and some a hundredfold."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his parable, he said to the multitude,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51:1.3 (1689.1) The apostles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when they heard Jesus teach the people in this manner, were greatly perplexed; and after much talking among themselves, that evening in the Zebedee garden Matthew said to Jesus: "Master, what is the meaning of the dark sayings which you present to the multitude? Why do you speak in parables to those who seek the truth?" And Jesus answered:

151:1.4 (1689.2) "In patience have I instructed you all this time. To you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 undiscerning

고 꾀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반면에 단지 우리를 해치기 위하여 들으러 온 자들은 보기는 하되 진정으로 보지 못하며, 듣기는 하되 진정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영(靈)의 법칙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여, 나의 친구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찾게 되고, 반면에 우리의 적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면서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숫자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정말로 선지자가 그러한 식별력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백성의 가슴이 둔하게 굳었고, 그 귀가 막히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들 가슴으로 납득할까 두려워 그들의 눈을 그들이 감았도다.’”

사도들은 주(主)의 말씀의 의의(意義)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안드레와 도마가 예수와 좀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 정원의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에서 그들은 열렬한 그리고 오랫동안의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 2 장. 비유의 해석

베드로와 그를 둘러싼 그룹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화이고 각각의 장면들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主)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로서는 이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나는 너로부터 아무 것도 숨길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한 너의 해석은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토의를 해보았는데, 내가 결론을 내린 해석은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이고;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어 가는 새들은 사탄이나 혹은 악한 자,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가슴에 뿌려져 있는 것을 훔쳐 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처럼 즉시 썩어간 것은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가 그들의 깊은 납득 안에, 실제적인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multitudes and to those who seek our destruction, from now on,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shall be presented in parables. And this we will do so that those who really desire to enter the kingdom may discern the meaning of the teaching and thus find salvation, while those who listen only to ensnare us may be the more confounded in that they will see without seeing and will hear without hearing. My children, do you not perceive the law of the spirit which decrees that to him who has shall be given so that he sha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him who has not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has. Therefore will I henceforth speak to the people much in parables to the end that our friends and those who desire to know the truth may find that which they seek, while our enemies and those who love not the truth may hear without understanding. Many of these people follow not in the way of the truth. The prophet did, indeed, describe all such undiscerning souls when he said: ‘For this people’s heart has waxed gross, and their ears are dull of hearing,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discern the truth and understand it in their hearts.’”

151:1.5 (1689.3) The apostles did not full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ter’s words. As Andrew and Thomas talked further with Jesus,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withdrew to another portion of the garden where they engaged in earnest and prolonged discussion.

2.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151:2.1 (1689.4) Peter and the group about him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able of the sower was an allegory, that each feature had some hidden meaning, and so they decided to go to Jesus and ask for an explanation. Accordingly, Peter approached the Master, saying: “We are not able to penetrate the meaning of this parable, and we desire that you explain it to us since you say it is given us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o Peter: “My son, I desire to withhold nothing from you, but first suppose you tell me what you have been talking about; what is your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151:2.2 (1689.5) After a moment of silence, Peter said: “Master, we have talked much concerning the parable, and this is the interpretation I have decided upon: The sower is the gospel preacher;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represents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gospel teaching. The birds which snatched away the seed that fell upon the hardened ground represent Satan, or the evil one, who steals away that which has been sown in the hearts of these ignorant ones. The seed which fell upon the rocky places, and which sprang up so suddenly, represents those superficial and

들의 헌신이 고난(苦難)이나 박해(迫害) 앞에서는 쉽게 없어지는 허울뿐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곤란이 찾아오면 이러한 신도(信徒)들은 비틀거리고; 유혹(誘惑)을 받으면 깊이 빠져듭니다. 가시넝쿨 가운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들으나, 세상 관심사와 부유함이라는 속임의 힘이 진리의 말씀을 억눌러 막도록 내버려두어 그로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함을 대표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 약 30배, 약 60배, 약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그들이 진리를 듣고 — 그들의 서로 다른 지적 자질들로 인하여 — 다양한 정도의 이해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대표하며, 그에 따라서 이들 다양한 정도의 종교적(宗教的) 체험(經驗)을 현시합니다.”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나신 후, 예수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 또한 다른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러한 요청을 받고 단지 나다니엘만이 반응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저는 시몬 베드로의 비유해석에서 여러 훌륭한 것들을 깨닫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충분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제 관념은 이렇습니다: 씨는 왕국 복음을 나타내며, 반면에 씨를 뿌리는 자는 왕국의 메신저들을 나타냅니다. 딱딱한 땅에 있는 길거리에 떨어진 씨는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굳어버린 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조금 밖에 듣지 못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씨를 채어 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 악의 유혹, 육신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돌에 떨어진 씨는 새로운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으나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실체에 부딪치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 감정적(感情的)인 혼을 말한다; 그들은 영적(靈的) 지각력(知覺力)이 부족합니다. 가시넝쿨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로 이끌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마음먹지만, 그들은 삶의 자부심, 질투, 시기심,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약 30배, 약 60배, 약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靈) 빛남의 각가지 자질을 지니고 있는 남녀들이 그 영적 가르침에 응답하는 그 자연적이고 다양한 힘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마쳤을 때,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들은 심각한 토의에 들어가서 열렬한 토론을 벌였는데, 얼마간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고자 하였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서로 상대를 확신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는 열성적이며 확신을 가

unthinking persons who, when they hear the glad tidings, receive the message with joy; but because the truth has no real root in their deeper understanding, their devotion is short-lived in the face of tribulation and persecution. When trouble comes, these believers stumble; they fall away when tempted. The seed which fell among thorns represents those who hear the word willingly, but who allow the car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to choke the word of truth so that it becomes unfruitful. Now the seed which fell on good ground and sprang up to bear, some thirty,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fold, represents those who, when they have heard the truth, receive it with varying degrees of appreciation — owing to their differing intellectual endowments — and hence manifest these varying degrees of religious experience.”

151:2.3 (1690.1) Jesus, after listening to Peter's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asked the other apostles if they did not also have suggestions to offer. To this invitation only Nathaniel responded. Said he: “Master, while I recognize many good things about Simon Peter's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I do not fully agree with him. My idea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seed represents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le the sower stands for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on hardened ground represents those who have heard but little of the gospel, along with those who are indifferent to the message, and who have hardened their hearts. The birds of the sky that snatched away the seed which fell by the wayside represent one's habits of life, the temptation of evil, and the desires of the flesh. The seed which fell among the rocks stands for those emotional souls who are quick to receive new teaching and equally quick to give up the truth when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and realities of living up to this truth; they lack spiritual perception. The seed which fell among the thorns represents those who are attracted to the truths of the gospel; they are minded to follow its teachings, but they are prevented by the pride of life, jealousy, envy, and the anxieties of human existence. The seed which fell on good soil, springing up to bear, some thirty, some sixty, and some a hundredfold, represents the natural and varying degrees of ability to comprehend truth and respond to its spiritual teachings by men and women who possess diverse endowments of spirit illumination.”

151:2.4 (1690.2) When Nathaniel had finished speaking, th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fell into serious discussion and engaged in earnest debate, some contending for the correctness of Peter's interpretation, while almost an equal number sought to defend Nathaniel's explanation of the parable. Meanwhile Peter and Nathaniel had withdrawn to the house, where they were involved in a vigorous and determined effort the one to

진 노력을 하였다.

주(主)는 이러한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나서 손뼉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다시 한 번 그의 주위에 모였을 때, 그가 말하였다. “내가 이 비유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너희 중의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한 순간의 침묵 후에 도마가 말하였다. “네, 주(主)여,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저희에게 바로 이 같은 일을 조심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설교에서 도해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설화(說話)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인용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바라는 하나의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의 도해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말 속에 포함된 모든 사소한 세부에 대하여 영적 적용을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둘 모두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릇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을 높게 평가하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자연스런 비유를 모든 그 모습 안에서 영적 유추(類推)가 수확되도록 만들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단지 그러한 비유의 진정한 목적에 혼란과 심각한 잘못된 개념으로 귀착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전적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전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비유에 관한 상이한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그토록 진지하게 주장함으로써, 당신께서 이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하고는 뒤이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평을 하라고 하였을 때, 제 생각으로는, 당신께서 염두에 두었을 위대한 진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힘마저도 방해할 정도까지 두 분리된 무리로 나뉘어 있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의 경우에서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예수가 다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저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군요.” 예수가 도마에게 말을 하라고 끄덕이자, 그가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원한다면,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임무를 실행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양한 성공의 정도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결실에서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명활동의 환경에 본래 있는 조건들과,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을 끝마치자, 그의 동료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그에게 동의하였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가고 있을 때,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였다. “도마야, 잘하였다. 네

convince and change the mind of the other.

151:2.5 (1690.3) The Master permitted this confusion to pass the point of most intense expression; then he clapped his hands and called them about him. When they had all gathered around him once more, he said, “Before I tell you about this parable, do any of you have aught to say?” Following a moment of silence, Thomas spoke up: “Yes, Master, I wish to say a few words. I remember that you once told us to beware of this very thing. You instructed us that, when using illustrations for our preaching, we should employ true stories, not fables, and that we should select a story best suited to the illustration of the one central and vital truth which we wished to teach the people, and that, having so used the story, we should not attempt to make a spiritual application of all the minor details involved in the telling of the story. I hold that Peter and Nathaniel are both wrong in their attempts to interpret this parable. I admire their ability to do these things, but I am equally sure that all such attempts to make a natural parable yield spiritual analogies in all its features can only result in confusion and serious misconception of the true purpose of such a parable. That I am right is fully proved by the fact that, whereas we were all of one mind an hour ago, now are we divided into two separate groups who hold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parable and hold such opinions so earnestly as to interfere, in my opinion, with our ability fully to grasp the great truth which you had in mind when you presented this parable to the multitude and subsequently asked us to make comment upon it.”

151:2.6 (1691.1) The words which Thomas spoke had a quieting effect on all of them. He caused them to recall what Jesus had taught them on former occasions, and before Jesus resumed speaking, Andrew arose, saying: “I am persuaded that Thomas is right, and I would like to have him tell us what meaning he attaches to the parable of the sower.” After Jesus had beckoned Thomas to speak, he said: “My brethren, I did not wish to prolong this discussion, but if you so desire, I will say that I think this parable was spoken to teach us one great truth. And that is that our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o matter how faithfully and efficiently we execute our divine commissions, is going to be attended by varying degrees of success; and that all such differences in results are directly due to conditions inherent in the circumstances of our ministry, conditions over which we have little or no control.”

151:2.7 (1691.2) When Thomas had finished speaking, the majority of his fellow preachers were about ready to agree with him, even Peter and Nathaniel were on their way over to speak with

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다니엘 모두, 그들이 내 비유를 뛰어넘어 하나의 우화를 만들어서 약속에 있는 위험을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너희 모두는 똑 같이 잘하였다. 너희 자신의 가슴속에서 너희는 가끔 이론적 상상력의 그러한 비약으로 유익하게 이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대중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너희가 그러한 결론을 제시하려고 구할 때 너희는 실책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와해되었다.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에게 그들의 해석에 대해 축하하였고, 알페오의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도들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과감히 밝혔다. 가룟 유다까지도 그럴 듯한 해석을 내렸다. 12사도들은 자신들끼리 자주 주(主)의 비유를 우화로 가정하고 그것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려는 노력은 해보았지만, 다시는 절대로 그들이 그러한 유추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과 다른 연관-동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던 수업이었으며, 특별히 이때로부터 예수가 점점 더 그의 대중 가르침과 관계하여 비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다.

제 3 장. 비유에 대해 좀 더 말하다

사도들은 비유에-마음이 너무나 사로잡혀 다음 날 저녁 모두를 비유에 대해 좀 더 깊은 토의에 몰입하였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그날 저녁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항상 가르침을 다르게 함으로서 너희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게 하는 진리의 발표가 아주 알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지성과 성격들의 군중들 앞에서 네가 섰을 때는, 너희가 듣는 사람들의 각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말들로 가르칠 수 없지만, 가르침을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각각의 집단, 각 개별존재까지도 자신의 지능과 영적 자질에 따라 너의 비유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빛이 비추이게 하되, 지혜와 사려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 아무도 등불에 불을 붙일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그의 등불을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 내가 너희에게 말 하건대 명백하게 현시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왕국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그 어떤 비밀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빛에 드러난다. 군중들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듣는지 만을 생각하지는 마라;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에게 주의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이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욱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비유에 관한 계속된 토의와 그들의 해석에 대한 좀 더 나아간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

him, when Jesus arose and said: “Well done, Thomas; you have discerned the true meaning of parables; but both Peter and Nathaniel have done you all equal good in that they have so fully shown the danger of undertaking to make an allegory out of my parables. In your own hearts you may often profitably engage in such flights of the speculative imagination, but you make a mistake when you seek to offer such conclusions as a part of your public teaching.”

151:2.8 (1691.3) Now that the tension was over, Peter and Nathaniel congratulated each other on their interpretations, a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pheus twins, each of the apostles ventured to make an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sower before they retired for the night. Even Judas Iscariot offered a very plausible interpretation. The twelve would often, among themselves, attempt to figure out the Master's parables as they would an allegory, but never again did they regard such speculations seriously. This was a very profitable session for th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especially so since from this time on Jesus more and more employed parables in connection with his public teaching.

3. MORE ABOUT PARABLES

151:3.1 (1691.4) The apostles were parable-minded, so much so that the whole of the next evening was devoted to the further discussion of parables. Jesus introduced the evening's conference by saying: “My beloved, you must always make a difference in teaching so as to suit your presentation of truth to the minds and hearts before you. When you stand before a multitude of varying intellects and temperaments, you cannot speak different words for each class of hearers, but you can tell a story to convey your teaching; and each group, even each individual, will be able to make his own interpretation of your parable in accordance with his own intellectual and spiritual endowments. You are to let your light shine but do so with wisdom and discretion. No man, when he lights a lamp, covers it up with a vessel or puts it under the bed; he puts his lamp on a stand where all can behold the light. Let me tell you that nothing is hid in the kingdom of heaven which shall not be made manifest; neither are there any secrets which shall not ultimately be made known. Eventually, all these things shall come to light. Think not only of the multitudes and how they hear the truth; take heed also to yourselves how you hear. Remember that I have many times told you: To him who has shall be given more, while from him who has not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thinks he has.”

151:3.2 (1692.1) The continued discussion of parables and further instruction as to their interpretation

로 요약되고 표현될 수 있다:

1. 예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꾸민 이야기나 우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비유, 특히 자연에 대한 비유의 자유로운 사용을 권하였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과 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적인 것을 “영적 실체의 비 실질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로 자주 암시하였다.

2. 예수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그가 비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거의 하나의 새로운 가르침의 방법이 되었기 되었다.

3.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는 다음의 점들에 주의를 주었다:

비유는 광대하게 다른 차원의 마음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차별에 도전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선동한다; 그것은 반목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도모한다.

비유는 알려진 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식별하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며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활용한다.

비유는 편견 없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비유는 많은 선입관을 피하게 하고, 새로운 진리를 우아하게 마음속에 넣어주고, 개인적 분개심에서 오는 자아-방어를 최소한으로 유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행한다.

비유적인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의식적 지능행동을 필요로 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하여 생각을 강화시키도록 이끌어준다.

가르침에서 비유형식의 사용은 선생에게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그는 주로 모든 논쟁 그리고 전통이나 확립된 권한과의 외면적 마찰을 피하게 해준다.

비유는 또한 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마주치게 될 때, 그것에서 배웠던 진리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는, 그의 대중 가르침에서 비유 사용이 점점 늘어가는 그의 실천 관행에 내제되어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신의 추종자들이 익히 알도록 애썼다.

may be summarized and expressed in modern phraseology as follows:

151:3.3 (1692.2) 1. Jesus advised against the use of either fables or allegories in teaching the truths of the gospel. He did recommend the free use of parables, especially nature parables. He emphasized the value of utilizing the *analogy* existing between the natural and the spiritual worlds as a means of teaching truth. He frequently alluded to the natural as “the unreal and fleeting shadow of spirit realities.”

151:3.4 (1692.3) 2. Jesus narrated three or four parables from the Hebrew scriptures, call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method of teaching was not wholly new. However, it became almost a new method of teaching as he employed it from this time onward.

151:3.5 (1692.4) 3. In teaching the apostles the value of parables, Jesus called attention to the following points:

151:3.6 (1692.5) The parable provides for a simultaneous appeal to vastly different levels of mind and spirit. The parable stimulates the imagination, challenges the discrimination, and provokes critical thinking; it promotes sympathy without arousing antagonism.

151:3.7 (1692.6) The parable proceeds from the things which are known to the discernment of the unknown. The parable utilizes the material and natural as a means of introducing the spiritual and the supermaterial.

151:3.8 (1692.7) Parables favor the making of impartial moral decisions. The parable evades much prejudice and puts new truth gracefully into the mind and does all this with the arousal of a minimum of the self-defense of personal resentment.

151:3.9 (1692.8) To reject the truth contained in parabolical analogy requires conscious intellectual action which is directly in contempt of one's honest judgment and fair decision. The parable conduces to the forcing of thought through the sense of hearing.

151:3.10 (1692.9) The use of the parable form of teaching enables the teacher to present new and even startling truths while at the same time he largely avoids all controversy and outward clashing with tradition and established authority.

151:3.11 (1693.1) The parable also possesses the advantage of stimulating the memory of the truth taught when the same familiar scenes are subsequently encountered.

151:3.12 (1693.2) In this way Jesus sought to acquaint his followers with many of the reasons underlying his practice of increasingly using parables in his public teaching.

저녁 수업시간이 끝날 무렵에, 예수가 처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그 비유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였다: 첫째, 그것은 그 때까지의 그 자신의 사명활동을 다시 돌아보고, 다가올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일생 동안 그의 앞에 놓여 질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 그것은 또한 사도들과 왕국의 다른 메신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로 그들의 사명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암시였다.

예수는 또한 그의 모든 업적이 악마들과 악마들의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종교 영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최상의 반박으로써 이러한 비유에 의지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기세의 직접적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의 적들에게 그를 괴롭히기 위한 트집이나 비난할 거리를 찾을 기회를 잘 제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더 좋은 길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는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방법을 결심하였다.

그 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가 말씀하였다: “이제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 주겠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시험하고 싶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에 열중하는 사이에 그 씨가 싹트고 자랐고, 그리고 그가 비록 그것이 어찌 그렇게 된 것인지 몰랐으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그리고 곡식이 익게 되었으니 그가 낫을 휘둘렀고 그리고는 추수가 완결되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들은 이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주(主)는 결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제 4 장. 해변에서 비유를 좀 더 말씀 하다

다음날 예수가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가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잡초 씨를 뿌리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어린 싹이 돋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 잡초도 또한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여,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들 잡초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하인들에게 대답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에 하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 잡초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에

151:3.13 (1693.3) Toward the close of the evening's lesson Jesus made his first comment on the parable of the sower. He said the parable referred to two things: First, it was a review of his own ministry up to that time and a forecast of what lay ahead of him for the remainder of his life on earth. And second, it was also a hint as to what the apostles and other messengers of the kingdom might expect in their ministr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time passed.

151:3.14 (1693.4) Jesus also resorted to the use of parables as the best possible refutation of the studied effort of the religious leaders at Jerusalem to teach that all of his work was done by the assistance of demons and the prince of devils. The appeal to nature was in contravention of such teaching since the people of that day looked upon all natural phenomena as the product of the direct act of spiritual beings and supernatural forces. He also determined upon this method of teaching because it enabled him to proclaim vital truths to those who desired to know the better way while at the same time affording his enemies less opportunity to find cause for offense and for accusations against him.

151:3.15 (1693.5) Before he dismissed the group for the night, Jesus said: “Now will I tell you the last of the parable of the sower. I would test you to know how you will receive this: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man who cast good seed upon the earth; and while he slept by night and went about his business by day, the seed sprang up and grew, and although he knew not how it came about, the plant came to fruit. First there was the blade, then the ear, then the full grain in the ear. And then when the grain was ripe, he put forth the sickle, and the harvest was finished. He who has an ear to hear, let him hear.”

151:3.16 (1693.6) Many times did the apostles turn this saying over in their minds, but the Master never made further mention of this addition to the parable of the sower.

4. MORE PARABLES BY THE SEA

151:4.1 (1693.7) The next day Jesus again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but while he slept, his enemy came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and hastened away. And so when the young blades sprang up and later were about to bring forth fruit, there appeared also the weeds. Then the servants of this householder came and said to him: ‘Sir, did you not sow good seed in your field? Whence then come these weeds?’ And he replied to his servants, ‘An enemy has done this.’ The servants then asked their master, ‘Would you have us go

게 대답하여 말하되, '아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모아들이는 동안, 너희가 밀까지 뽑을 것이 걱정이 되는구나. 차라리 추수 때까지 둘 모두 함께 자라게 놓아두라, 그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리니, 잡초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몇 가지의 질문을 한 후에, 예수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지금은 겨자 씨 하나가 씨들 중에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그것이 모든 목초들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게 된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여자가 세 그릇의 가루를 가져와 그 안에 감춰진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여 가루의 모두가 부풀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는 기뻐하며 그 밭을 사려는 돈을 가져보려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러 나갔다."

"하늘의 왕국은 또한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자, 그는 그 엄청난 진주를 사 보려고 그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나가서 팔았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온갖 고기를 끌어 모아 올리는 후릿그물과 같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고기들을 분류하였는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렸다."

예수가 다른 많은 비유를 군중들에게 말씀하였다. 사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군중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공개적인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후에, 그는 밤 시간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좀 더 충만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제 5 장. 게라사를 방문하다

그 주내내 군중들이 계속하여 늘었다. 안식일에 예수가 서둘러 언덕으로 떠났지만, 일요일 아침이 오자, 그 무리들은 다시 돌아왔다. 예수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이른 오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였는데, 그가 말을 완결하고 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군중들 때문에 지쳤으니, 저쪽 편으로 건너가서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그들은 격렬하고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것은 특히 일 년 이

out and pluck up these weeds?' But he answered them and said: 'No, lest while you are gathering them up, you uproot the wheat also. Rather let them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time of the harvest, when I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up first the weed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and then gather up the wheat to be stored in my barn.'

151:4.2 (1693.8) After the people had asked a few questions, Jesus spoke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man sowed in his field. Now a mustard seed is the least of seeds, but when it is full grown, it becomes the greatest of all herbs and is like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heavens are able to come and rest in the branches thereof."

151:4.3 (1694.1)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and in this way it came about that all of the meal was leavened."

151:4.4 (1694.2)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ich a man discovered. In his joy he went forth to sell all he had that he might have the money to buy the field."

151:4.5 (1694.3) "The kingdom of heaven is also like a merchant seeking goodly pearls; and having found one pearl of great price, he went out and sold everything he possessed that he might be able to buy the extraordinary pearl."

151:4.6 (1694.4)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sweep net which was cast into the sea, and it gathered up every kind of fish. Now, when the net was filled, the fishermen drew it up on the beach, where they sat down and sorted out the fish, gathering the good into vessels while the bad they threw away."

151:4.7 (1694.5) Many other parables spoke Jesus to the multitudes. In fact, from this time forward he seldom taught the masses except by this means. After speaking to a public audience in parables, he would, during the evening classes, more fully and explicitly expound his teachings to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5. THE VISIT TO KHERESA

151:5.1 (1694.6) The multitude continued to increase throughout the week. On Sabbath Jesus hastened away to the hills, but when Sunday morning came, the crowds returned. Jesus spoke to them in the early afternoon after the preaching of Peter, and when he had finished, he said to his apostles: "I am weary of the throngs;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that we may rest for a day."

151:5.2 (1694.7) On the way across the lake they encountered one of those violent and sudden

계절의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었다. 이 수역(水域)은 해변보다 거의 700피트가 낮고 높은 독으로 둘러져 있었고, 특별히 서쪽이 더 그러하였다. 거기에는 호수로부터 언덕까지로 이어지는 가파른 협곡이 있었고, 낮에는 가열된 공기가 호수위에 둘러싸인 곳 안으로 올라가고 해가 진 후에는 협곡의 찬 공기가 호수로 급속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강풍이 어떤 때는 빠르게 왔다가 한 순간에 갑자기 없어지곤 하였다.

이 일요일 밤에 예수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가 맞이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저녁 강풍이었다. 젊은 전도자들 중 일부를 태운 3척의 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매우 강렬하였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호수의 이 지역에만 한정되었고, 서쪽 해변 가에는 폭풍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바람은 너무 세서 물결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하였다. 높은 바람은 사도들이 채 돛을 감아 말기도 전에, 돛을 찢어 버렸고, 그들은 이제 약 1마일 반이 떨어져 있는 해안가를 향해 힘들게 저어가면서, 오직 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그리는 동안 예수는 작은 지붕 아래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들이 벳세다를 떠날 당시 주(主)가 매우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를 건너편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었다. 예전에 어부들이었던 이들은 건장한 체형 있는 사공들이었으나, 그 폭풍우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심하였다. 바람과 물결이 마치 장난감이나 된다는 듯이 그들의 배를 다루어 높이 치솟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오른 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그는 노를 내려놓고 예수께로 뛰어가서 그를 깨우기 위하여 심하게 흔들었다. 그가 일어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주(主)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예수가 빗속으로 나왔을 때, 그는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어둠 속을 뚫어 살피면서 노 젓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의 격한 불안에서, 그의 노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신 후, 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 모두가 그렇게 두려움에 차 있느냐? 너희 신앙은 어디 있느냐? 잠잠하라, 진정하라.” 예수가 이렇게 책망의 말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막 끝내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의 불안한 혼을 진정시키면서 잠잠함을 찾으라는 지도를 거의 막 끝내고 있을 그 때가, 휘몰아치던 공기가 균형을 찾아 갔고,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은 때였다. 성난 물결이 거의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편 짧은 비를 내렸던 검은 구름이 사라졌으며, 하늘 위에는 별들이 빛났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었는데,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든 자연은 영적 세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통제 아래에 직접

windstorm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Sea of Galilee, especially at this season of the year. This body of water is almost seven hundred feet below the level of the sea and is surrounded by high banks, especially on the west. There are steep gorges leading up from the lake into the hills, and as the heated air rises in a pocket over the lake during the day, there is a tendency after sunset for the cooling air of the gorges to rush down upon the lake. These gales come on quickly and sometimes go away just as suddenly.

151:5.3 (1694.8) It was just such an evening gale that caught the boat carrying Jesus over to the other side on this Sunday evening. Three other boats containing some of the younger evangelists were trailing after. This tempest was severe, notwithstanding that it was confined to this region of the lake, there being no evidence of a storm on the western shore. The wind was so strong that the waves began to wash over the boat. The high wind had torn the sail away before the apostles could furl it, and they were now entirely dependent on their oars as they laboriously pulled for the shore, a little more than a mile and a half distant.

151:5.4 (1694.9) Meanwhile Jesus lay asleep in the stern of the boat under a small overhead shelter. The Master was weary when they left Bethsaida, and it was to secure rest that he had directed them to sail him across to the other side. These ex-fishermen were strong and experienced oarsmen, but this was one of the worst gales they had ever encountered. Although the wind and the waves tossed their boat about as though it were a toy ship, Jesus slumbered on undisturbed. Peter was at the right-hand oar near the stern. When the boat began to fill with water, he dropped his oar and, rushing over to Jesus, shook him vigorously in order to awaken him, and when he was aroused, Peter said: “Master, don’t you know we are in a violent storm? If you do not save us, we will all perish.”

151:5.5 (1695.1) As Jesus came out in the rain, he looked first at Peter, and then peering into the darkness at the struggling oarsmen, he turned his glance back upon Simon Peter, who, in his agitation, had not yet returned to his oar, and said: “Why are all of you so filled with fear? Where is your faith? Peace, be quiet.” Jesus had hardly uttered this rebuke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he had hardly bidden Peter seek peace wherewith to quiet his troubled soul, when the disturbed atmosphere, having established its equilibrium, settled down into a great calm. The angry waves almost immediately subsided, while the dark clouds, having spent themselves in a short shower, vanished, and the stars of heaven shone overhead. All this was purely coincidental as far as we can judge; but the apostles, particularly Simon Peter, never ceased to regard the episode as a nature miracle. It was especially easy for the men

적으로 놓여있는 현상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의 기적을 매우 쉽게 믿었다.

예수는 분명하게 12사도들에게 그가 그들의 불안한 영들에게 말한 것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이지, 자연의 요소들에게 복종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主)의 추종자들은 항상 그러한 우연한 발생사건들에 자신들의 해석을 붙이기를 고집하였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주(主)가 자연 요소들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에게 순종한다.”를 반복하여 말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해변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다. 그날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들 모두가 해변 가로 올라가지 않고 배에서 지냈다. 약 40명이 되는 그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저 쪽 언덕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제 6 장. 게라사의 미치광이

호수의 동쪽해변 인근의 대부분은 뒤쪽 고원 지대와 완만한 경사로 이어졌지만, 이 특정한 지점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어떤 곳의 해변은 호수 안으로 깎아질러 내려갔다. 인근의 언덕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이 언덕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어디 아늑한 곳에서 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 언덕까지 전체는 바위가 오랫동안 패어져 만들어진 동굴들로 덮여 있었다. 이러한 패인 곳들의 대부분은 옛날의 무덤들이었다. 언덕배기의 반 정도 올라 간 곳의 작고 비교적 평평한 지점에 작은 마을 게라사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이 매장지 가까이를 지나가자, 이 언덕배기 동굴에서 살고 있던 한 미치광이가 그들 앞으로 달려왔다. 이 미친 사람은 이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한 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석굴에 갇혀있었다. 오래 전에 그는 고랑을 부셔서 이제는 제 뜻대로 무덤들과 버려진 돌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주기적인 정신 이상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발작 중에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그의 동료들 속에서 제법 잘 처신하는 때도 상당히 있었다. 이러한 제 정신이 든 기간에 그가 한번 뱃세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 때 왕국 복음을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되었었다. 그러나 곧 그의 병이 사나운 위상으로 발작했고, 그는 무덤으로 제빨리 피하여, 그곳에서 그는 신음하면서 크게 울부짖었고, 그리하여 그 자신은 우연히 그를 만나

of that day to believe in nature miracles inasmuch as they firmly believed that all nature was a phenomenon directly under the control of spirit forces and supernatural beings.

151:5.6 (1695.2) Jesus plainly explained to the twelve that he had spoken to their troubled spirits and had addressed himself to their fear-tossed minds, that he had not commanded the elements to obey his word, but it was of no avail. The Master's followers always persisted in plac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n all such coincidental occurrences. From this day on they insisted on regarding the Master as having absolute power over the natural elements. Peter never grew weary of reciting how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151:5.7 (1695.3) It was late in the evening when Jesus and his associates reached the shore, and since it was a calm and beautiful night, they all rested in the boats, not going ashore until shortly after sunrise the next morning. When they were gathered together, about forty in all, Jesus said: “Let us go up into yonder hills and tarry for a few days while we ponder over the problems of the Father's kingdom.”

6. THE KHERESA LUNATIC

151:6.1 (1695.4) Although most of the near-by eastern shore of the lake sloped up gently to the highlands beyond, at this particular spot there was a steep hillside, the shore in some places dropping sheer down into the lake. Pointing up to the side of the near-by hill, Jesus said: “Let us go up on this hillside for our breakfast and under some of the shelters rest and talk.”

151:6.2 (1695.5) This entire hillside was covered with caverns which had been hewn out of the rock. Many of these niches were ancient sepulchres. About halfway up the hillside on a small, relatively level spot was the cemetery of the little village of Kheresa. As Jesus and his associates passed near this burial ground, a lunatic who lived in these hillside caverns rushed up to them. This demented man was well known about these parts, having onetime been bound with fetters and chains and confined in one of the grottoes. Long since he had broken his shackles and now roamed at will among the tombs and abandoned sepulchres.

151:6.3 (1696.1) This man, whose name was Amos, was afflicted with a periodic form of insanity. There were considerable spells when he would find some clothing and deport himself fairly well among his fellows. During one of these lucid intervals he had gone over to Bethsaida, where he heard the preaching of Jesus and the apostles, and at that time had become a halfhearted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soon a stormy phase of his trouble appeared, and he fled to the tombs,

게 되는 사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모스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예수여, 저는 당신을 압니다. 참으로 제가 많은 악마에 사로잡혀 있으니, 저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실 것을 제가 간청 드립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주기적인 정신적 고통이, 그 당시에는, 악령이나 더러운 영들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문제들은 주로 감정의 문제였다. —그의 뇌는 크게 병들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 발아래에 짐승처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로 몸을 숙여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였다: “아모스야, 너는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 너는 이미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발작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한다.” 아모스가 예수의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지성에서 그 어떤 변환이 발생했으며 그로서 그는 즉시 그의 제정신인 마음을 되찾고 자신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 상당한 군중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모여들었고, 고원지대로부터 온 돼지 치는 자들로 증강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과 앉아서, 그는 제정신인 마음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돼지 치는 자들이 미치광이를 고친 소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마을로 급히 들어갔을 때, 작고 그리고 돌보는 이가 없는 약 30마리의 돼지 떼를 개들이 습격해서 대부분의 돼지들을 절벽 너머 바다로 내몰았다. 이 우연한 발생사건이, 예수의 현존과 미치광이의 기적적인 고침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관련된, 예수가 귀신 군대들을 그로부터 쫓아내어 아모스를 고친 후, 그 귀신들을 돼지 떼로 들여보내 이들을 쏜살같이 바다 속으로 빠지게 하여 처치해버렸다는 전설이 만들어지는 기원이 되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이 에피소드는 돼지 치는 자들에 의해 널리 공포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마음이 진정된 바로 후에, 돼지 떼가 언덕 가장 자리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고 고통을 준 바로 그 악령들을 그 돼지 떼들이 가지고 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질환이 영구하게 고쳐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있었다. 예수의 사도들(도마를 제쳐놓고)도 돼지 에피소드가 직접적으로 아모스의 치유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예수는 자기가 원했던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 날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는 아모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과 귀신이 미치광이로부터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 의해 시달렸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친

where he moaned, cried out aloud, and so conducted himself as to terrorize all who chanced to meet him.

151:6.4 (1696.2) When Amos recognized Jesus, he fell down at his feet and exclaimed: “I know you, Jesus, but I am possessed of many devils, and I beseech that you will not torment me.” This man truly believed that his periodic mental affliction was due to the fact that, at such times, evil or unclean spirits entered into him and dominated his mind and body. His troubles were mostly emotional — his brain was not grossly diseased.

151:6.5 (1696.3) Jesus, looking down upon the man crouching like an animal at his feet, reached down and, taking him by the hand, stood him up and said to him: “Amos, you are not possessed of a devil; you have already heard the good news that you are a son of God.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this spell.” And when Amos heard Jesus speak these words, there occurred such a transformation in his intellect that he was immediately restored to his right mind and the normal control of his emotions. By this time a considerable crowd had assembled from the nearby village, and these people, augmented by the swine herders from the highland above them, were astonished to see the lunatic sitting with Jesus and his followers, in possession of his right mind and freely conversing with them.

151:6.6 (1696.4) As the swine herders rushed into the village to spread the news of the taming of the lunatic, the dogs charged upon a small and untended herd of about thirty swine and drove most of them over a precipice into the sea. And it was this incidental occurrence,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ce of Jesus and the supposed miraculous curing of the lunatic, that gave origin to the legend that Jesus had cured Amos by casting a legion of devils out of him, and that these devils had entered into the herd of swine, causing them forthwith to rush headlong to their destruction in the sea below. Before the day was over, this episode was published abroad by the swine tenders, and the whole village believed it. Amos most certainly believed this story; he saw the swine tumbling over the brow of the hill shortly after his troubled mind had quieted down, and he always believed that they carried with them the very evil spirits which had so long tormented and afflicted him. And this had a good deal to do with the permanency of his cure. It is equally true that all of Jesus' apostles (save Thomas) believed that the episode of the swine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ure of Amos.

151:6.7 (1696.5) Jesus did not obtain the rest he was looking for. Most of that day he was thronged by those who came in response to the word that Amos had been cured, and who were attracted by the story that the demons had gone out of the

구들은 단지 하루 밤의 휴식을 취한 후인 화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그들로부터 떠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돼지 기르는 이방인들의 대표자 때문에 잠이 깨었다. 그 대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하였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여, 우리로부터 떠나 주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선지자를 함께 모시고 가 주시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임을 알지만, 우리 고장의 하느님들은 그를 알지 못하며, 우리는 많은 돼지들을 잃게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으니,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서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자, 안드레에게 “우리의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였다.

그들이 막 떠나려고 했을 때, 아모스가 그들과 함께 가도록 예수께 간청했으나, 주(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가 아모스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하느님이 너를 위하여 해주신 위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아모스는 예수가 그의 병든 혼으로부터 귀신군대들을 내쫓았다는 것과 이 악령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몰살되었다는 것을 광고하며 다녔다. 그리고 그는, 데카폴리스의 모든 도시를 지나갈 때까지, 예수가 그에게 행한 위대한 일들에 대해 선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lunatic into the herd of swine. And so, after only one night of rest, early Tuesday morning Jesus and his friends were awakened by a delegation of these swine-raising gentiles who had come to urge that he depart from their midst. Said their spokesman to Peter and Andrew: “Fishermen of Galilee, depart from us and take your prophet with you. We know he is a holy man, but the gods of our country do not know him, and we stand in danger of losing many swine. The fear of you has descended upon us, so that we pray you to go hence.” And when Jesus heard them, he said to Andrew, “Let us return to our place.”

151:6.8 (1697.1) As they were about to depart, Amos besought Jesus to permit him to go back with them, but the Master would not consent. Said Jesus to Amos: “Forget not that you are a son of God. Return to your own people and show them what great things God has done for you.” And Amos went about publishing that Jesus had cast a legion of devils out of his troubled soul, and that these evil spirits had entered into a herd of swine, driving them to quick destruction. And he did not stop until he had gone into all the cities of the Decapolis, declaring what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제 152 편 가버나움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 151

유랜시아 책

15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2 편 가버나움 위기에 이르기까지
의 사건

섹션

소개

- 제 1 장. 야이루스의 집에서
- 제 2 장. 5,000명을 먹이다
- 제 3 장. 왕-만들기 에피소드
- 제 4 장. 시몬 베드로의 밤 환상
- 제 5 장. 벳세다로 돌아옴
- 제 6 장. 게네사렛에서
- 제 7 장. 예루살렘에서

소개

게라사의 미치광이 아모스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퍼졌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화요일 오전에 그의 배가 도착하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주(主)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던 새로운 관찰자들도 있었다. 예수가 그를 마중 나와 모여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회당 통치자들 중 하나인 야이루스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그의 발아래에 엎드려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급히 가 줄 것을 간청하며 말하였다: “주(主)여,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가 이 아버지의 청을 듣고 말씀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예수가 야이루스와 함께 가시자, 그 아버지의 청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보기 위해 그들 뒤를 따랐다. 회당 통치자의 집에 다다르기 조금 전에 사람들이 좁은 길을 몰려가면서, 인파가 예수를 밀치자 갑자기 그가 멈추어서,

PAPER 152

EVENTS LEADING UP TO THE
CAPERNAUM CRISIS

SECTIONS

Introduction

- 1. At Jairus's House
- 2. Feeding the Five Thousand
- 3. The King-Making Episode
- 4. Simon Peter's Night Vision
- 5. Back in Bethsaida
- 6. At Gennesaret
- 7. At Jerusalem

INTRODUCTION

^{152:0.1 (1698.1)} THE story of the cure of Amos, the Kheresa lunatic, had already reached Bethsaida and Capernaum, so that a great crowd was waiting for Jesus when his boat landed that Tuesday forenoon. Among this throng were the new observers from the Jerusalem Sanhedrin who had come down to Capernaum to find cause for the Master's apprehension and conviction. As Jesus spoke with those who had assembled to greet him, Jairus,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made his way through the crowd and, falling down at his feet, took him by the hand and besought that he would hasten away with him, saying: "Master, my little daughter, an only child, lies in my home at the point of death. I pray that you will come and heal her." When Jesus heard the request of this father, he said: "I will go with you."

^{152:0.2 (1698.2)} As Jesus went along with Jairus, the large crowd which had heard the father's request followed on to see what would happen. Shortly before they reached the ruler's house, as they hastened through a narrow street and as the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였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主)여, 이 군중들이 당신을 밀고, 우리를 밀치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당신이 보실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 말씀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생명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간 것을 내가 감지하였기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었다.” 예수가 그의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눈이 가까이 있던 한 여인에게 멈추었다. 그러자 그녀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심한 혈루병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저는 많은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며 수많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며,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확실히 나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당신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군중들을 그렇게 헤치고 나왔습니다. 주(主)여, 내가 당신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내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고통이 고쳐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가 온전하게 된 것은 그녀가 그에게 손을 대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일어 난, 보기에는 기적 같은 많은 치유의 좋은 예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의식적으로 뜻한 것이 아니었다. 이 여인이 그녀의 질병에서 실제로 고쳐진 것은 시간의 흐름이 실증하였다. 그녀의 신앙은 주(主)의 개인 안에 거하는 창조의 힘에 직접 대어보겠다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신앙으로는, 단지 주(主)의 개인 앞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었고,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부분이었다. 예수는 케자리아-빌립보의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그녀의 마음속에, 혹은 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간직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실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예수는, 베로니카가 자신의 고침을 몰래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에 그녀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치유 효력을 얻었다는 그녀의 미신에 잡힌 생각을 지니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치유를 가져온 것은 그녀의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제 1 장. 아이루스의 집에서

아이루스는 자기 집으로 가는 여정이 지연되자 당연히 매우 초조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통치자의 정원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였다: “주(主)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게 하지 마십시오. 파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하인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슬퍼하는 아버지

throng jostled him, Jesus suddenly stopped, exclaiming, “Someone touched me.” And when those who were near him denied that they had touched him, Peter spoke up: “Master, you can see that this crowd presses you, threatening to crush us, and yet you say ‘someone has touched me.’ What do you mean?” Then Jesus said: “I asked who touched me, for I perceived that living energy had gone forth from me.” As Jesus looked about him, his eyes fell upon a near-by woman, who, coming forward, knelt at his feet and said: “For years I have been afflicted with a scourging hemorrhage. I have suffered many things from many physicians; I have spent all my substance, but none could cure me. Then I heard of you, and I thought if I may but touch the hem of his garment, I shall certainly be made whole. And so I pressed forward with the crowd as it moved along until, standing near you, Master, I touched the border of your garment, and I was made whole; I know that I have been healed of my affliction.”

152:0.3 (1698.3) When Jesus heard this, he took the woman by the hand and, lifting her up, said: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go in peace.” It was her *faith* and not her *touch* that made her whole. And this case is a good illustration of many apparently miraculous cures which attended upon Jesus’ earth career, but which he in no sense consciously willed. The passing of time demonstrated that this woman was really cured of her malady. Her faith was of the sort that laid direct hold upon the creative power resident in the Master’s person. With the faith she had, it was only necessary to approach the Master’s person. It was not at all necessary to touch his garment; that was merely the superstitious part of her belief. Jesus called this woman, Veronica of Caesarea-Philippi, into his presence to correct two errors which might have lingered in her mind, or which might have persisted in the minds of those who witnessed this healing: He did not want Veronica to go away thinking that her fear in attempting to steal her cure had been honored, or that her superstition in associating the touch of his garment with her healing had been effective. He desired all to know that it was her pure and living *faith* that had wrought the cure.

1. AT JAIRUS'S HOUSE

152:1.1 (1699.1) Jairus was, of course, terribly impatient of this delay in reaching his home; so they now hastened on at quickened pace. Even before they entered the ruler’s yard, one of his servants came out, saying: “Trouble not the Master; your daughter is dead.” But Jesus seemed not to heed the servant’s words, for, taking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he turned and said to the grief-stricken father: “Fear not; only

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그가 집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는 이미 피리부는 자들과 문상객들이 와서, 절망치 않는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이미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문상객들을 방에서 내보내신 후, 소녀의 부모와 세 사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문상객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 했었지만, 그러나 모두들 그를 비웃었다. 이제 예수가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당신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예수는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였다: “딸아, 내가 네게 말하니, 깨어서 일어나라!”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즉시 일어나 방을 걸어갔다. 그녀가 그녀의 명한 상태에서 회복된 후, 즉시 예수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많은 선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소녀가 오랜 열병 후에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녀를 잠에서 깨웠을 뿐, 그가 죽음에서 그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그 작은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믿었다. 예수가 이러한 표면상의 많은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한 것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 마음 끌려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예수께 돌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들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가 특별히 당부하고 나서, 예수와 사도들은 뱃세대로 돌아왔다.

그가 야이루스의 집에서 나왔을 때, 두 명의 소경들이 한 귀머거리 소년의 부축을 받고 그를 따라오며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무렵에는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어디를 가나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主)가 매우 지쳐 있어서, 그의 친구들 모두는 그가 실제로 쓰러질 때까지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지나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사도들까지도 이 분 하느님-사람의 본성과 속성을 납득할 수 없었다. 또한 후세의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개인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비상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나 혹은 네바돈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에서도 두 번 다시 발생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과학이나 또 종교에 관한 이들 놀라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결코 생길 수 없다. 이 전체 우주의 어떤 세상에서도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대부분의 다른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 자질과 병합된 창조 에너지의 모든 속성을 체현하는, 어떤 존재가 다시 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believe.” When he entered the house, he found the flute-players already there with the mourners, who were making an unseemly tumult; already were the relatives engaged in weeping and wailing. And when he had put all the mourners out of the room, he went in with the father and mother and his three apostles. He had told the mourners that the damsel was not dead, but they laughed him to scorn. Jesus now turned to the mother, saying: “Your daughter is not dead; she is only asleep.” And when the house had quieted down, Jesus, going up to where the child lay,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Daughter, I say to you, awake and arise!” And when the girl heard these words, she immediately rose up and walked across the room. And presently, after she had recovered from her daze, Jesus directed that they should give her something to eat, for she had been a long time without food.

152:1.2 (1699.2) Since there was much agitation in Capernaum against Jesus, he called the family together and explained that the maiden had been in a state of coma following a long fever, and that he had merely aroused her, that he had not raised her from the dead. He likewise explained all this to his apostles, but it was futile; they all believed he had raised the little girl from the dead. What Jesus said in explanation of many of these apparent miracles had little effect on his followers. They were miracle-minded and lost no opportunity to ascribe another wonder to Jesus. Jesus and the apostles returned to Bethsaida after he had specifically charged all of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152:1.3 (1699.3) When he came out of Jairus's house, two blind men led by a dumb boy followed him and cried out for healing. About this time Jesus' reputation as a healer was at its very height. Everywhere he went the sick and the afflicted were waiting for him. The Master now looked much worn, and all of his friends were becoming concerned lest he continue his work of teaching and healing to the point of actual collapse.

152:1.4 (1699.4) Jesus' apostles, let alone the common people, could not understand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is God-man. Neither has any subsequent generation been able to evaluate what took place on earth in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And there can never occur an opportunity for either science or religion to check up on these remarkable events for the simple reason that such an extraordinary situation can never again occur, either on this world or on any other world in Nebadon. Never again, on any world in this entire universe, will a being appear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t the same time embodying all the attributes of creative energy combined with spiritual endowments which transcend time and most other material limitations.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은 물론 그 이후도, 필사자 남녀들의 강하고 생생한 신앙에 따르는 결과를 그렇게 직접, 그림으로 보듯 확보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이들 현상을 되풀이하려면, 우리가 창조자이신 미가엘의 현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 때-사람의 아들-의 그가 계신 그대로의 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것처럼, 오늘, 그가 자리에 없음이 그런 물질적 현시활동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의 영적 힘의 가능한 발현에 그 어떤 종류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비록 주(主)가 물질적 존재로는 지금 없지만, 그는 영적 영향으로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현존하고 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모든 인류의 마음에 깃드는 그의 아버지의 영과 나란히 그의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152:1.5 (1700.1) Never before Jesus was on earth, nor since, has it been possible so directly and graphically to secure the results attendant upon the strong and living faith of mortal men and women. To repeat these phenomena, we would have to go into the immediate presence of Michael, the Creator, and find him as he was in those days — the Son of Man. Likewise, today, while his absence prevents such material manifestations, you should refrain from placing any sort of limitation on the possible exhibition of his *spiritual power*. Though the Master is absent as a material being, he is present as a spiritual influence in the hearts of men. By going away from the world, Jesus made it possible for his spirit to live alongside that of his Father which indwells the minds of all mankind.

제 2 장. 5,000명을 먹이다

2. FEEDING THE FIVE THOUSAND

예수는 낮에는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모든 추종자들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며칠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제자들은 그를 떠나려 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으므로, 그래서 다윗 세베대가 새 야영장을 세우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주(主)는 안식일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가 있기를 원하였다. 예수와 12사도들이 눈에 띄지 않게 건너편 호숫가로 가서 벳세다-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약간의 전도자들이 무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남았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서, 동쪽 해안에 있는 이들 공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다.

152:2.1 (1700.2)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people by day while he instructed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at night. On Friday he declared a furlough of one week that all his followers might go home or to their friends for a few days before preparing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But more than one half of his disciples refused to leave him, and the multitude was daily increasing in size, so much so that David Zebedee desired to establish a new encampment, but Jesus refused consent. The Master had so little rest over the Sabbath that on Sunday morning, March 27, he sought to get away from the people. Some of the evangelists were left to talk to the multitude while Jesus and the twelve planned to escape, unnoticed, to the opposite shore of the lake, where they proposed to obtain much needed rest in a beautiful park south of Bethsaida-Julias. This region was a favorite resorting place for Capernaum folks; they were all familiar with these parks on the eastern shore.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방향을 보았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배를 타고 추적에 나섰다. 배를 구하지 못한 자들은 호수 북쪽 끝을 돌아 걸어갔다.

152:2.2 (1700.3) But the people would not have it so. They saw the direction taken by Jesus' boat, and hiring every craft available, they started out in pursuit. Those who could not obtain boats fared forth on foot to walk around the upper end of the lake.

늦은 오후 무렵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원에 계신 주(主)를 찾아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말을 이어 그들에게 잠시 말씀하였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저녁식사 후에 예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152:2.3 (1700.4) By late afternoon more than a thousand persons had located the Master in one of the parks, and he spoke to them briefly, being followed by Peter. Many of these people had brought food with them, and after eating the evening meal, they gathered about in small groups while Jesus' apostles and disciples taught them.

월요일 오후에 군중은 삼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여전히—밤늦도록 까지—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또한 온갖 종류의 병자를 함께 데리고 왔다.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152:2.4 (1700.5) Monday afternoon the multitude had increased to more than three thousand. And still — way into the evening — the people continued to flock in, bringing all manner of sick folks with them.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보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목적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은 간단하게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요일 정오까지는 약 5,000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벳세다-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이 공원에 모였다. 이때는 이 지역에서 우기(雨期)의 끝에 가까웠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다.

빌립은 예수와 12사도들을 위한 3일분의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것을 잔심부름꾼 소년인 마가에게 돌보도록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에는 군중들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다했 세베대에게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고 재울만한 천막도시가 없었으며, 빌립 역시 그러한 군중들을 위한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헤롯과 예루살렘 영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여 적들의 관찰 구역을 벗어난 이 조용한 장소를 왕위에 즉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조용하게 속삭여지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의 열광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예수는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마디의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 12사도들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젊은 전도자들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려는 이 계획에 동의한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시몬 켈로페, 가롯 유다였다.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도들은 안드레, 야고보, 나다니엘, 도마였다. 마태, 빌립, 알패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는 이 구상의 주모자는, 젊은 전도자, 요압이었다.

예수가 야고보 알패오에게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그 수요일 오후 5시경의 무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이 군중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우리와 지금까지 3일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배고파하고 있다. 그들은 가진 음식이 없구나.”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를 쳐다 본 후, 빌립이 말하였다: “주(主)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왕 구상이 구현될까 걱정하고 있던 안드레가 재빠르게 빌립의 말에 끼어들어 말하였다: “예. 주(主)여, 그들을 돌려보내어 음식을 사먹도록 하고, 그 동안 주(主)는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는 12사도들의 나머지도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굶주린 채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먹일 수는 없겠느냐?” 빌립으로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찼고, 그래서 그가 곧 바로 말하였다: “주(主)여, 이런 시골 어디에서 이 군중을 먹일 빵을 사겠습니까? 200 데나리온 어치가 점심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전에,

Hundreds of interested persons had made their plans to stop over at Capernaum to see and hear Jesus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and they simply refused to be disappointed. By Wednesday noon about five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ssembled here in this park to the south of Bethsaida-Julias. The weather was pleasant, it being near the end of the rainy season in this locality.

152:2.5 (1700.6) Philip had provided a three days' supply of food for Jesus and the twelve, which was in the custody of the Mark lad, their boy of all chores. By afternoon of this, the third day for almost half of this multitude, the food the people had brought with them was nearly exhausted. David Zebedee had no tented city here to feed and accommodate the crowds. Neither had Philip made food provision for such a multitude. But the people, even though they were hungry, would not go away. It was being quietly whispered about that Jesus, desiring to avoid trouble with both Herod and the Jerusalem leaders, had chosen this quiet spot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ll his enemies as the proper place to be crowned king. The enthusiasm of the people was rising every hour. Not a word was said to Jesus, though, of course, he knew all that was going on. Even the twelve apostles were still tainted with such notions, and especially the younger evangelists. The apostles who favored this attempt to proclaim Jesus king were Peter, John,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Those opposing the plan were Andrew, James, Nathaniel, and Thomas. Matthew, Philip, and the Alpheus twins were noncommittal. The ringleader of this plot to make him king was Joab, one of the young evangelists.

152:2.6 (1701.1) This was the stage setting about five o'clock on Wednesday afternoon, when Jesus asked James Alpheus to summon Andrew and Philip. Said Jesus: "What shall we do with the multitude? They have been with us now three days, and many of them are hungry. They have no food." Philip and Andrew exchanged glances, and then Philip answered: "Master, you should send these people away so that they may go to the villages around about and buy themselves food." And Andrew, fearing the materialization of the king plot, quickly joined with Philip, saying: "Yes, Master, I think it best that you dismiss the multitude so that they may go their way and buy food while you secure rest for a season." By this time others of the twelve had joined the conference. Then said Jesus: "But I do not desire to send them away hungry; can you not feed them?" This was too much for Philip, and he spoke right up: "Master, in this country place where can we buy bread for this multitude? Two hundred denarii worth would not be enough for lunch."

152:2.7 (1701.2) Before the apostles had an

예수가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여기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있다. 나는 그들을 먹이고 싶다. 우리가 가진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빌립이 마태, 유다와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는 소년 마가에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돌아와 말하였다: “저 소년이 겨우 빵 다섯 개와 마른 생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재빨리 덧붙였다. “우리가 곧 오늘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예수가 침묵으로 서 계셨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갑자기 안드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빵과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나라.”라고 말하였다. 안드레가 바구니를 예수께 가져오자, 주(主)가 말씀하였다: “사람들을 100명씩 풀밭에 앉히고, 각 무리의 대표를 정하는 한편, 모든 전도자들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예수가 그의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어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연관-동료들에게 주었으며, 차례대로 그것을 군중들에게로 가져갔다. 예수는 생선도 그런 식으로 떼어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 먹고 배가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남은 조각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을 거두어들이기를 마쳤을 때, 그들은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 굉장한 잔치에서 음식을 먹었던 남녀와 아이들은 그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가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한 결과로서 진행된 처음이자 유일한 자연의 기적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기적이 아닌 많은 일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싶어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 이 경우에서 미가엘이 시간의 요소와 눈에 보이는 생명 경로를 제거한 것 이외에는, 그가 항상 하듯이 음식 원소를 증식하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

제 3 장. 왕-만들기 에피소드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인간적 동정심에 창조 힘이 더해짐이 바로 그런 일을 일으켰던 그러했던 경우의 또 다른 하나였다. 이제 배가 부르게 먹고 난 군중들에게는, 그 당시의 예수의 명성이 이러한 엄청난 이적으로 증강되어, 주(主)를 붙들고 왕으로 선포하려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개인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관념은 군중들 안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충족시켜 준 것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심오하고 압도적이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을 짓과 꼴로 다시 넘치게 해 줄 것이며, 생명의 빵이 광야에서 그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Jesus turned to Andrew and Philip, saying: “I do not want to send these people away. Here they a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I would like to feed them. What food have we with us?” While Philip was conversing with Matthew and Judas, Andrew sought out the Mark lad to ascertain how much was left of their store of provisions. He returned to Jesus, saying: “The lad has left only five barley loaves and two dried fishes” — and Peter promptly added, “We have yet to eat this evening.”

152:2.8 (1701.3) For a moment Jesus stood in silence. There was a faraway look in his eyes. The apostles said nothing. Jesus turned suddenly to Andrew and said, “Bring me the loaves and fishes.” And when Andrew had brought the basket to Jesus, the Master said: “Direct the people to sit down on the grass in companies of one hundred and appoint a leader over each group while you bring all of the evangelists here with us.”

152:2.9 (1701.4) Jesus took up the loaves in his hands, and after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the bread and gave to his apostles, who passed it on to their associates, who in turn carried it to the multitude. Jesus in like manner broke and distributed the fishes. And this multitude did eat and were filled. And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the disciples: “Gather up the broken pieces that remain over so that nothing will be lost.” And when they had finished gathering up the fragments, they had twelve basketfuls. They who ate of this extraordinary feast numbered about five thousand men, women, and children.

152:2.10 (1702.1) And this is the first and only nature miracle which Jesus performed as a result of his conscious preplanning. It is true that his disciples were disposed to call many things miracles which were not, but this was a genuine supernatural ministration. In this case, so we were taught, Michael multiplied food elements as he always does except for the elimination of the time factor and the visible life channel.

3. THE KING-MAKING EPISODE

152:3.1 (1702.2)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by supernatural energy was another of those cases where human pity plus creative power equaled that which happened. Now that the multitude had been fed to the full, and since Jesus' fame was then and there augmented by this stupendous wonder, the project to seize the Master and proclaim him king required no further personal direction. The idea seemed to spread through the crowd like a contagion. The reaction of the multitude to this sudden and spectacular supplying of their physical needs was profound and overwhelming. For a long time the Jews had been taught that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when he should come, would

들의 선조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진 것 같이 그들 위에 주어진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굶주리고 미숙한 군중이 그 이적-음식으로 배부르도록 가득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만장일치가 되는 단 한가지의 반응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이 계시다.” 이적을-행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드디어 왔다. 이들 단순하게-마음먹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먹일 수 있는 힘이란 다스릴 권한을 지닌 것이었다. 성찬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외치자, 군중의 모두가 일어 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강력한 외침은 여전히 예수가 통치할 권한을 주창하기를 바라고 있던 사도들과 베드로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기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다. 군중들의 이러한 힘찬 외침소리가 근처의 바위로부터 울려 퍼지고 좀처럼 멈추지 않았을 때, 예수가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오른 손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의도는 좋았지만, 너희는 좁은 안목과 물질적인-마음을 가지고 있다.”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침묵이 엄습하였다. 이 건장한 갈릴리 사람은 거기에서 동쪽 황혼의 황홀한 빛을 받으며 장엄하게 서있었다.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군중들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구석으로 보나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혼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가 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했더냐?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영적 형제신분이며, 그리고 그 누구도 물질적인 왕좌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이 이 세상 하느님 아들들의 이 영적 형제신분 위에 계신 모든-지혜를 갖추고 만능이신 통치자이다. 너희가 육신으로 있는 그의 아들 되는 이를 왕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영들의 아버지이신 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서 실패하였더라 말이나! 이제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왕을 가져야 한다면, 빛의 아버지를 만물의 영 통치자로 너희 각자의 가슴속에서 추대하도록 하라.”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그 군중을 아연케 하였고 그리고 낙담한 채로 떠나보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음식 조각을 건어 들인 열 두 바구니를 둘러싸고 말없이 서 있었다. 단지 심부름꾼 소년인 마가만이, “그가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군요.”라고 말하였다. 예수가 홀로 언덕으로 떠나가기 전에 안드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너희 형제들을 세 베대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 특히 네 동생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

cause the land again to flow with milk and honey, and that the bread of life would be bestowed upon them as manna from heaven was supposed to have fallen upon their forefathers in the wilderness. And was not all of this expectation now fulfilled right before their eyes? When this hungry, undernourished multitude had finished gorging itself with the wonder-food, there was but one unanimous reaction: “Here is our king.” The wonder-working deliverer of Israel had come. In the eyes of these simple-minded people the power to feed carried with it the right to rule. No wonder, then, that the multitude, when it had finished feasting, rose as one man and shouted, “Make him king!”

152:3.2 (1702.3) This mighty shout enthused Peter and those of the apostles who still retained the hope of seeing Jesus assert his right to rule. But these false hopes were not to live for long. This mighty shout of the multitude had hardly ceased to reverberate from the near-by rocks when Jesus stepped upon a huge stone and, lifting up his right hand to command their attention, said: “My children, you mean well, but you are shortsighted and material-minded.” There was a brief pause; this stalwart Galilean was there majestically posed in the enchanting glow of that eastern twilight. Every inch he looked a king as he continued to speak to this breathless multitude: “You would make me king, not because your souls have been lighted with a great truth, but because your stomachs have been filled with bread.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is kingdom of heaven which we proclaim is a spiritual brotherhood, and no man rules over it seated upon a material throne. My Father in heaven is the all-wise and the all-powerful Ruler over this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on earth. Have I so failed in revealing to you the Father of spirits that you would make a king of his Son in the flesh! Now all of you go hence to your own homes. If you must have a king, let the Father of lights be enthroned in the heart of each of you as the spirit Ruler of all things.”

152:3.3 (1702.4) These words of Jesus sent the multitude away stunned and disheartened. Many who had believed in him turned back and followed him no more from that day. The apostles were speechless; they stood in silence gathered about the twelve baskets of the fragments of food; only the chore boy, the Mark lad, spoke, “And he refused to be our king.” Jesus, before going off to be alone in the hills, turned to Andrew and said: “Take your brethren back to Zebedee’s house and pray with them, especially for your brother, Simon Peter.”

제 4 장. 시몬 베드로의 밤 환상

사도들은, 주(主)를 모시지 않고—그들끼리만 보내졌기에—배로 가서 말없이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갔다. 사도들 중의 그 누구도 시몬 베드로만큼 실망하여 풀이 죽어있지는 않았다.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는 채, 그들 모두는 언덕에서 홀로 지내실 주(主)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었으나? 그 전에는 결코 그렇게 그들 모두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찬 바람과 역풍이 일고 있는 사이에, 어둠이 그들 위에 내려왔다. 어두움과 힘들게 노 젓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베드로가 피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를 배의 고물에 있는 폭신한 자리로 옮겼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예수가 물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환상이었다. 주(主)가 배 옆으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가 외쳤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主)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이러한 말들의 몇 마디를 들었다. 이 밤의 환영(幻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중에, 그는 꿈에서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통스런 혼에 마치 길르앗의 향료처럼 위안을 주었으며,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주(主)에게 외쳤다: “주님, 실제로 당신이시면 저도 함께 물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 거센 물결이 그를 겁나게 했으며, 그가 가라앉으려하자, 소리쳤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열 둘 중의 다수가 그의 이 외침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가 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꿈을 꾸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

자신의 꿈의 후반 부분과 연결되어, 베드로는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에서 그를 끌어 올렸을 때, 그가 꿈을 잤다.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항상 실제의 일로 여겨졌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가 그날 밤 그들에게 왔었다고 믿었다. 그는 단지 요한 마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서 마가가 그의 기록에서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남겼는지를 설명해 준다. 의사인 누가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 5 장. 벳세다로 돌아옴

4. SIMON PETER'S NIGHT VISION

152:4.1 (1703.1) The apostles, without their Master — sent off by themselves — entered the boat and in silence began to row toward Bethsaida on the western shore of the lake. None of the twelve was so crushed and downcast as Simon Peter. Hardly a word was spoken; they were all thinking of the Master alone in the hills. Had he forsaken them? He had never before sent them all away and refused to go with them. What could all this mean?

152:4.2 (1703.2) Darkness descended upon them, for there had arisen a strong and contrary wind which made progress almost impossible. As the hours of darkness and hard rowing passed, Peter grew weary and fell into a deep sleep of exhaustion. Andrew and James put him to rest on the cushioned seat in the stern of the boat. While the other apostles toiled against the wind and the waves, Peter dreamed a dream; he saw a vision of Jesus coming to them walking on the sea. When the Master seemed to walk on by the boat, Peter cried out, “Save us, Master, save us.” And those who were in the rear of the boat heard him say some of these words. As this apparition of the night season continued in Peter's mind, he dreamed that he heard Jesus say: “Be of good cheer; it is I; be not afraid.” This was like the balm of Gilead to Peter's disturbed soul; it soothed his troubled spirit, so that (in his dream) he cried out to the Master: “Lord, if it really is you, bid me come and walk with you on the water.” And when Peter started to walk upon the water, the boisterous waves frightened him, and as he was about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And many of the twelve heard him utter this cry. Then Peter dreamed that Jesus came to the rescue and, stretching forth his hand, took hold and lifted him up, saying: “O, you of little faith, wherefore did you doubt?”

152:4.3 (1703.3)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part of his dream Peter arose from the seat whereon he slept and actually stepped overboard and into the water. And he awakened from his dream as Andrew, James, and John reached down and pulled him out of the sea.

152:4.4 (1703.4) To Peter this experience was always real. He sincerely believed that Jesus came to them that night. He only partially convinced John Mark, which explains why Mark left a portion of the story out of his narrative. Luke, the physician, who made careful search into these matters, concluded that the episode was a vision of Peter's and therefore refused to give place to this story in the preparation of his narrative.

5. BACK IN BETHSAIDA

목요일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세 베대 집 근처의 해변 가에 배를 세워놓고 정오까지 잠을 잤다. 제일 먼저 일어난 안드레가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심부름꾼 소년과 함께 해변돌 위에 앉아계시는 예수를 발견하였다. 군중들 중 많은 사람들과 젊은 전도자들이 온 밤과 다음날 오랫동안 동쪽 산 인근에서 예수를 찾아다녔었지만 아무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그는 소년 마가를 데리고 호수를 돌아 걷기 시작해서 강을 건너 벳세다로 돌아왔다.

기적으로 음식을 먹었던,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은 비어 있었던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했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지 오백 명 정도가 계속해서 그를 따랐다. 그러나 예수는 안드레에게 사람들이 그가 벳세다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전에 12사도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연관-동료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시키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모두가 모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너희들에게 참아야 하였느냐? 너희 모두 그렇게 영적 이해가 느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던 말이나? 이 여러 달을 내가 왕국의 진리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영적 생각들보다는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너희가 성서에서 모세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훈계한 것을 이미 읽지 않았느냐?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였다. 시편의 저자도 말했다; ‘주님을 신뢰하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대답할찌어다. 그가 너희 가슴을 강하게 하리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에 너의 가슴을 쏟아 부어라. 하느님은 너희의 피난처이시니’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인간 영주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제 너희 모두가 기적의 행함이나 물질적 이적들을 행사함이 영적 왕국으로 들도록 혼을 설득하지 못함을 보았느냐? 우리가 군중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빵이나 영적 올바름의 물을 갈구하도록 인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하늘의 왕국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이후로는 애써 일함이 없이도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계속될 수도 있는 오직 그런 일을 해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사람의 아들을 그런 왕으로 선포하려 하였다. 너희도 다소나마 관여했던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또한 이 세상에서 그의 왕국을 진보시키는 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시민 통치자가 지 틀어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교 영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너희의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안에서 충분한 신

152:5.1 (1703.5) Thursday morning, before daylight, they anchored their boat offshore near Zebedee's house and sought sleep until about noontime. Andrew was first up and, going for a walk by the sea, found Jesus, in company with their chore boy, sitting on a stone by the water's edge. Notwithstanding that many of the multitude and the young evangelists searched all night and much of the next day about the eastern hills for Jesus, shortly after midnight he and the Mark lad had started to walk around the lake and across the river, back to Bethsaida.

152:5.2 (1704.1) Of the five thousand who were miraculously fed, and who, when their stomachs were full and their hearts empty, would have made him king, only about five hundred persisted in following after him. But before these received word that he was back in Bethsaida, Jesus asked Andrew to assemble the twelv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including the women, saying, “I desire to speak with them.” And when all were ready, Jesus said:

152:5.3 (1704.2)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Are you all slow of spiritual comprehension and deficient in living faith? All these months have I taught you the truths of the kingdom, and yet are you dominated by material motives instead of spiritual considerations. Have you not even read in the Scriptures where Moses exhorted the unbelieving children of Israel, saying: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Said the singer: ‘Put your trust in the Lord.’ ‘Be patient, wait upon the Lord and be of good courage. 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you. Trust him at all times and pour out your heart to him, for God is your refuge.’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It is better to trust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human princes.’

152:5.4 (1704.3) “And now do you all see that the working of miracles and the performance of material wonders will not win souls for the spiritual kingdom? We fed the multitude, but it did not lead them to hunger for the bread of life neither to thirst for the waters of spiritual righteousness. When their hunger was satisfied, they sought not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rather sought to proclaim the Son of Man king after the manner of the kings of this world, only that they might continue to eat bread without having to toil therefor. And all this, in which many of you did more or less participate, does nothing to reveal the heavenly Father or to advance his kingdom on earth. Have we not sufficient enemies among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land without doing that which is likely to estrange also the civil rulers? I pray that the Father will anoint your eyes that you may see and open your ears that you may hear, to

앙을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유월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사도들도 같이 휴식을 위하여 물러나 있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누구도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2-3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편으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갔다. 예수는 이 세상 그의 일생의 커다란 위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5,000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소식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전역에 두루 넓은 지역에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또한 종교 영도자들과 정치 통치자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큰 기적은 물질적-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신반의의 신도들의 혼속에 왕국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그것이 예수의 사도들이나 측근 제자들인 직계 가족의 기적을-찾아다님과 왕을-열망하는 버릇들을 막바지로 이끌어내는 목적에는 도움을 주었다. 이 굉장한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가르침, 훈련, 병 고침으로 이루어진 초기 단계가 끝나게 되었고, 좀 더 높고 좀 더 영적인 위상이 되는 새로운 왕국 복음—신성한 아들관계, 영적 해방,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었다.

제 6 장. 게네사렛에서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어느 부유한 신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 예수는 매일 오후에 12사도들과 격식이 없는 회의를 열었다. 왕국의 사절들은 진지했고, 침착했고 환상을 버린 사람들의 단련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중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12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젖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 나타나실 유대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서 충분히 해방되지 못하였다. 이전 몇 주일 동안의 사건들은 깜짝 놀란 이들 어부들이 그 충분한 의의(意義)를 파악하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사회적 행위, 철학적 관점,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들의 근원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에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와 12사도들이 게네사렛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군중들은 해산되어서 어떤 이는 집으로, 다른 이들은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에 갈릴리 한 군데에서만도 그 수가 50,000명이 넘었던 열성적이며 노골적이었던 예수의 추종자들의 수가 채 오백 명도 안 되게 줄었다. 예수는 사도들이, 환호하는 대중의 번덕스러움을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그가 그들을 떠난 후 그들 혼자서 왕국의 일을 할 때, 과도기

the end that you may have full faith in the gospel which I have taught you.”

152:5.5 (1704.4) Jesus then announced that he wished to withdraw for a few days of rest with his apostles before they made ready to go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he forbade any of the disciples or the multitude to follow him. Accordingly they went by boat to the region of Gennesaret for two or three days of rest and sleep. Jesus was preparing for a great crisis of his life on earth, and he therefore spent much time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in heaven.

152:5.6 (1704.5) The news of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 attempt to make Jesus king aroused widespread curiosity and stirred up the fears of both the religious leaders and the civil rulers throughout all Galilee and Judea. While this great miracle did nothing to further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the souls of material-minded and halfhearted believers, it did serve the purpose of bringing to a head the miracle-seeking and king-craving proclivities of Jesus' immediate family of apostles and close disciples. This spectacular episode brought an end to the early era of teaching, training, and healing, thereby preparing the way for the inauguration of this last year of proclaiming the higher and more spiritual phase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 divine sonship, spiritual liberty, and eternal salvation.

6. AT GENNESARET

152:6.1 (1705.1) While resting at the home of a wealthy believer in the Gennesaret region, Jesus held informal conferences with the twelve every afternoon. The ambassadors of the kingdom were a serious, sober, and chastened group of disillusioned men. But even after all that had happened, and as subsequent events disclosed, these twelve men were not yet fully delivered from their inbred and long-cherished notions about the coming of the Jewish Messiah. Events of the preceding few weeks had moved too swiftly for these astonished fishermen to grasp their full significance. It requires time for men and women to effect radical and extensive changes in their basic and fundamental concepts of social conduct, philosophic attitudes, and religious convictions.

152:6.2 (1705.2) While Jesus and the twelve were resting at Gennesaret, the multitudes dispersed, some going to their homes, others going on up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In less than one month's time the enthusiastic and open followers of Jesus, who numbered more than fifty thousand in Galilee alone, shrank to less than five hundred. Jesus desired to give his apostles such an experience with the fickleness of popular acclaim

적인 종교적 흥분상태인 그런 현시활동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에서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게네사렛에서 체류한 둘째 날 밤에 주(主)가 다시 사도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철저히 실망이 되며, 이와 비슷하게 순전히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도, 속이 비고 열매를 맺지 못 한다; 너희가, 영의 탄생으로 의심의 어두움에서 믿음의 빛—하늘의 왕국—속으로의 그렇게 벗어난 모든 이들의 매일의 삶에서 영의 진정한 열매의 풍성한 수확으로 당장에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 성격의 변환을 이룩하는 것과 영속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없음은, 오직 너희의 호소를 인간 마음 안에 함께 사는 영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지적인 주의를 집중시키고 붙잡아두는 기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는, 혼에는 참된 성격 변환의 영구한 결과를 잘 제 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리를 알아보고 복음의 영적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이 거하고 있고, 마음은 그 혼에 이르는 대문으로서 그렇게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충격—단지 며칠이 남아있는 그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서 다가올 위기—에 대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12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종교 통치자들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헤롯 안티파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 사도들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좀 더 충만하게 (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 진리가 물질적인 이적을 통해서 전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다. 그들은 5,000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던 민중운동이 기적을—찾고, 이적·행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점이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걸려지고 그리고 모진 역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희미하게 예견하였다. 이들 12명 사람들은 서서히 왕국 대사로서의 자신들 과업의 진정한 본성의 실현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主)의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해의 괴롭고 시련이 되는 엄격한 고난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각오를 단단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게네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인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며, 그들에게 정말 왜 이러한 창조 힘의 비범한 현시활동을 나타냈는지를 말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가 확정했기까지는 군중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님을 단언하였다.

that they would not be tempted to rely on such manifestations of transient religious hysteria after he should leave them alone in the work of the kingdom, but he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in this effort.

152:6.3 (1705.3) The second night of their sojourn at Gennesaret the Master again told the apostles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added these words: “You see, my children, the appeal to human feelings is transitory and utterly disappointing; the exclusive appeal to the intellect of man is likewise empty and barren; it is only by making your appeal to the spirit which lives within the human mind that you can hope to achieve lasting success and accomplish those marvelous transformations of human character that are presently shown in the abundant yielding of the genuin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daily lives of all who are thus delivered from the darkness of doubt by the birth of the spirit into the light of faith — the kingdom of heaven.”

152:6.4 (1705.4) Jesus taught the appeal to the emotions as the technique of arresting and focusing the intellectual attention. He designated the mind thus aroused and quickened as the gateway to the soul, where there resides that spiritual nature of man which must recognize truth and respond to the spiritual appeal of the gospel in order to afford the permanent results of true character transformations.

152:6.5 (1705.5) Jesus thus endeavored to prepare the apostles for the impending shock — the crisis in the public attitude toward him which was only a few days distant. He explained to the twelve that the religious rulers of Jerusalem would conspire with Herod Antipas to effect their destruction. The twelve began to realize more fully (though not finally) that Jesus was not going to sit on David's throne. They saw more fully that spiritual truth was not to be advanced by material wonders. They began to realize tha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 popular movement to make Jesus king was the apex of the miracle-seeking, wonder-working expectance of the people and the height of Jesus' acclaim by the populace. They vaguely discerned and dimly foresaw the approaching times of spiritual sifting and cruel adversity. These twelve men were slowly awaking to the realization of the real nature of their task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they began to gird themselves for the trying and testing ordeals of the last year of the Master's ministry on earth.

152:6.6 (1706.1) Before they left Gennesaret, Jesus instructed them regarding the miraculo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elling them just why he engaged in this extraordinary manifestation of creative power and also assuring them that he did not thus yield to his sympathy for the multitude until he had ascertained that it was “according to the Father's will.”

제 7 장. 예루살렘에서

4월 3일 일요일에 예수는 12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군중들을 피하고 가능한 한 관심을 적게 끌기 위하여, 그들은 게라사와 필라델피아를 경유하여 여행하였다. 그는 이 여행 중에 어떤 대중 가르침도 그들이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4월 6일 수요일 밤 늦게 도착하였다. 이날 밤은 함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묵었지만 그러나 다음 날에 그들은 나뉘어졌다. 예수는 요한과 베다니 나사로 집 근처에 있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신도의 집에서 묵었다. 가롯 유다와 시몬 젤로페는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묵었으며,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다른 가정에 체류하였다.

예수는 유월절 동안에 단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많은 예루살렘 신도들이 아브너에 이끌려 예수를 만나러 베다니로 나왔다. 예루살렘의 체류기간 동안에 12사도들은 주(主)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악화되어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위기가 곧 닥쳐왔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4월 24일 일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해변도시들인 요파, 케자리아, 프톨레마이스를 경유하며 여행하였다. 거기서부터 육로로 그들은 라마, 코라진을 지나 4월 29일 금요일에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하면서 즉시, 예수는 안식일인 다음 날 오후 봉사예배에 그가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 보라고 안드레를 회당 지배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7. AT JERUSALEM

^{152:7.1 (1706.2)} Sunday, April 3, Jesus, accompanied only by the twelve apostles, started from Bethsaida on the journey to Jerusalem. To avoid the multitudes and to attract as little attention as possible, they journeyed by way of Gerasa and Philadelphia. He forbade them to do any public teaching on this trip; neither did he permit them to teach or preach while sojourning in Jerusalem. They arrived at Bethany, near Jerusalem, late on Wednesday evening, April 6. For this one night they stopped at the home of Lazarus, Martha, and Mary, but the next day they separated. Jesus, with John, stayed at the home of a believer named Simon, near the house of Lazarus in Bethany. Judas Iscariot and Simon Zelotes stopped with friends in Jerusalem, while the rest of the apostles sojourned, two and two, in different homes.

^{152:7.2 (1706.3)} Jesus entered Jerusalem only once during this Passover, and that was on the great day of the feast. Many of the Jerusalem believers were brought out by Abner to meet Jesus at Bethany. During this sojourn at Jerusalem the twelve learned how bitter the feeling was becoming toward their Master. They departed from Jerusalem all believing that a crisis was impending.

^{152:7.3 (1706.4)} On Sunday, April 24, Jesus and the apostles left Jerusalem for Bethsaida, going by way of the coast cities of Joppa, Caesarea, and Ptolemais. Thence, overland they went by Ramah and Chorazin to Bethsaida, arriving on Friday, April 29. Immediately on reaching home, Jesus dispatched Andrew to ask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permission to speak the next day, that being the Sabbath, at the afternoon service. And Jesus well knew that that would be the last time he would ever be permitted to speak in the Capernaum synagogue.

제 153 편 가버나움에서의 위기

⇨ 152

유랜시아 책

15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3 편 가버나움에서의 위기

섹션

소개

제 1 장. 무대의 준비

제 2 장. 신(新)시대의 설교

제 3 장. 끝난 뒤의 모임

제 4 장. 회당에서의 마지막 말

제 5 장. 토요일 밤

PAPER 153

THE CRISI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tting of the Stage

2. The Epochal Sermon

3. The After Meeting

4. Last Words in the Synagogue

5. The Saturday Evening

소개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였던 금요일 밤과 안식일 아침에, 사도들은 예수가 어떤 중대한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주(主)가 그 중대한 문제에 매우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한밤중에도 식사를 거의 안하였다. 안식일 오전 내내 그리고 저녁 전까지 12사도들과 연관-동료들은 집 주위와 정원과 해변 가를 따라가며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불확실에 대한 긴장과 체포되는 불안으로 인한 조바심이 모두를 덮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로 그들에게 거의 말씀이 없었다.

그들은 주(主)가 그렇게 어떤 일에 몰두되어 말이 없는 모습을 여러 달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몬 베드로까지도, 기가 꺾인 것은 아닐 지라도, 우울해 하고 있었다. 안드레는 자신의 풀이 죽어 있는 연관-동료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해하였다. 나다니엘은 그들이 “폭풍전의 고요”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말했다. 도마는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의 견을 표현하였다. 빌립은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가 주(主)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전까지는 군중들을 먹이고 채우는 계획을 잊어버려라.”는 조언을 하였다. 마태는 재정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INTRODUCTION

153:0.1 (1707.1) ON FRIDAY evening, the day of their arrival at Bethsaida, and on Sabbath morning, the apostles noticed that Jesus was seriously occupied with some momentous problem; they were cognizant that the Master was giving unusual thought to some important matter. He ate no breakfast and but little at noontide. All of Sabbath morning and the evening before, the twelve and their associates were gathered together in small groups about the house, in the garden, and along the seashore. There was a tension of uncertainty and a suspense of apprehension resting upon all of them. Jesus had said little to them since they left Jerusalem.

153:0.2 (1707.2) Not in months had they seen the Master so preoccupied and uncommunicative. Even Simon Peter was depressed, if not downcast. Andrew was at a loss to know what to do for his dejected associates. Nathaniel said they were in the midst of the “lull before the storm.” Thomas expressed the opinion that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is about to happen.” Philip advised David Zebedee to “forget about plans for feeding and lodging the multitude until we know what the Master is thinking about.” Matthew was putting forth renewed efforts to replenish the treasury. James and John talked over the

이번에 가지는 회당에서의 설교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리고 그 가능한 성격과 범위를 많이 추측해 보았다. 시몬 젤로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실제 안에서 희망을, 표현했다. 한편 가롯 유다는 예수가 아마도 “그가 5,0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할 용기와 대담성을 갖지 못했다.”는 후회로 짓눌려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울하고 마음 둘 곳을 몰라 하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예수가 그 아름다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의 신(新)시대를-만드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그의 측근 추종자들에서 나온 씩씩한 인사나 혹은 축복의 말은, 오직 그의 심 없는 알페오 쌍둥이 형제중 하나에서 나왔고, 그는, 예수가 회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명랑하게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 도움을 주실 것과,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 1 장. 무대의 준비

새로 지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매우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 3시에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이 예수를 맞이하였다. 야이루스가 사회를 보았으며, 그는 예수에게 그가 입을 성서를 건네주었다. 그 전날 53명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또한 근처 회당들에서도 30명이 넘는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이들 유대 종교 영도자들은 전적으로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통파의 선봉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적인 싸움을 개시하러 온 것이었다. 이들 유대 영도자들의 옆자리, 회당의 명예 석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공식 관찰자들이 앉았으며, 그들은 헤롯의 형제인 빌립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민중들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려 했다는 불순한 보고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예수는 그가 날로 늘어나는 적들이 공언하던 공개투쟁이 즉시 선포되는 것을 직면하고 있음을 아셨고, 그는 대담하게 공격적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5,000명을 먹인 일에서, 그는 그들의 물질적 메시아의 개념에 도전하였다; 이제 그가 다시 공개적으로 유대 해방자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이 안식일 오후 설교로 종결되는 이 위기는, 일반민중의 칭송과 환호의 파도를 밖을 향해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후부터 왕국의 일은, 인류의 진정한 종교적 형제 됨을 위하여, 영속(永續)하는 영적 전향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더욱 중요한 과업에 점점 더 상관하게 되었다. 이 설교는 토의, 논쟁 그리고 결정의 기간에서부터, 그러한 공개적인 싸움, 그리고 그러한 최종적인 찬동 또

forthcoming sermon in the synagogue and speculated much as to its probable nature and scope. Simon Zelotes expressed the belief, in reality a hope, that “the Father in heaven may be about to intervene in some unexpected manner for the vindication and support of his Son,” while Judas Iscariot dared to indulge the thought that possibly Jesus was oppressed with regrets that “he did not have the courage and daring to permit the five thousand to proclaim him king of the Jews.”

153:0.3 (1707.3) It was from among such a group of depressed and disconsolate followers that Jesus went forth on this beautiful Sabbath afternoon to preach his epoch-making sermon in the Capernaum synagogue. The only word of cheerful greeting or well-wishing from any of his immediate followers came from one of the unsuspecting Alpheus twins, who, as Jesus left the house on his way to the synagogue, saluted him cheerily and said: “We pray the Father will help you, and that we may have bigger multitudes than ever.”

1. THE SETTING OF THE STAGE

153:1.1 (1707.4) A distinguished congregation greeted Jesus at three o'clock on this exquisite Sabbath afternoon in the new Capernaum synagogue. Jairus presided and handed Jesus the Scriptures to read. The day before, fifty-three Pharisees and Sadducees had arrived from Jerusalem; more than thirty of the leaders and rulers of the neighboring synagogues were also present. These Jewish religious leaders were acting directly under orders from the Sanhedrin at Jerusalem, and they constituted the orthodox vanguard which had come to inaugurate open warfare on Jesus and his disciples. Sitting by the side of these Jewish leaders, in the synagogue seats of honor, were the official observers of Herod Antipas, who had been directed to ascertain the truth concerning the disturbing reports that an attempt had been made by the populace to proclaim Jesus the king of the Jews, over in the domains of his brother Philip.

153:1.2 (1708.1) Jesus comprehended that he faced the immediate declaration of avowed and open warfare by his increasing enemies, and he elected boldly to assume the offensive. At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he had challenged their ideas of the material Messiah; now he chose again openly to attack their concept of the Jewish deliverer. This crisis, which began wit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which terminated with this Sabbath afternoon sermon, was the outward turning of the tide of popular fame and acclaim. Henceforth, the work of the kingdom was to be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more important task of winning lasting spiritual converts for the truly religious brotherhood of mankind. This sermon marks the

는 최종적인 배척으로 옮겨가는 위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주(主)는 많은 추종자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국에는 그를 배척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아셨다. 또한 자신의 많은 제자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의 훈련과 혼의 단련을 통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정복하고 용감하게 왕국 복음 안에서 그들의 충만하게-자란 신앙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아셨다. 예수는, 되풀이 되는 선과 악의 상황에서 거듭하여 선택하는 느린 과정에 따라서, 위기에서의 결정과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갑작스런 행위를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메신저들을 실망 안에서 반복적인 시행 연습을 겪게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영적 시련을 만나게 되는 옳고 그릇된 방법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빈번하고 훈련이 되는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시험을 겪게 될 때, 그들이 이전에 앞서 있었던 그리고 습관화된 정신적 태도와 영적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이 세상 일생에서의 이 위기는 5,000 명을 먹인 것으로 시작해서 회당에서의 이번 설교로 끝이 났고, 사도들의 삶에서의 위기는 회당에서의 설교로 시작하여 한 해 전체를 계속하였으며, 주(主)의 재판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났다.

예수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들이 그날 오후에 회당에 앉아 있는 중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큰 신비, 오직 하나의 최대 의문이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나 그의 적들 모두가 단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왜 그는 그렇게 고의적이며 효과적으로 민중의 열광의 물결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 불만에 찬 그의 추종자들의 그 의심과 실망이 무의식적인 반감을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실재적 증오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설교 바로 전과 바로 후의 일이었다. 가롯 유다가, 그의 떠날 생각을 처음으로 의식하여 품어 본 것이 바로 이 회당 설교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은, 그러한 모든 의향을 효과적으로 억눌렀다.

모든 사람들이 혼돈된 상태에 있었다. 예수는 그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최근에 그의 전 생애를 특징짓는 초자연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실증을 실시하였다. 5,000 명을 먹인 사건은 그의 이 세상 일생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갔었던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는 그가 왕이 되기를 즉석에서 그리고 명백하게 거절함으로써 즉시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쇄되었다.

금요일 밤과 안식일 오전에 예루살렘 영도자

crisis in the transition from the period of discussion, controversy, and decision to that of open warfare and final acceptance or final rejection.

153:1.3 (1708.2) The Master well knew that many of his followers were slowly but surely preparing their minds finally to reject him. He likewise knew that many of his disciples were slowly but certainly passing through that training of mind and that discipline of soul which would enable them to triumph over doubt and courageously to assert their full-fledge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Jesus fully understood how men prepare themselves for the decisions of a crisis and the performance of sudden deeds of courageous choosing by the slow process of the reiterated choosing between the recurring situations of good and evil. He subjected his chosen messengers to repeated rehearsals in disappointment and provided them with frequent and testing opportunities for choosing between the right and the wrong way of meeting spiritual trials. He knew he could depend on his followers, when they met the final test, to make their vital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prior and habitual mental attitudes and spirit reactions.

153:1.4 (1708.3) This crisis in Jesus' earth life began with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ended with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the crisis in the lives of the apostles began with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and continued for a whole year, ending only with the Master's trial and crucifixion.

153:1.5 (1708.4) As they sat there in the synagogue that afternoon before Jesus began to speak, there was just one great mystery, just one supreme question, in the minds of all. Both his friends and his foes pondered just one thought, and that was: "Why did he himself so deliberately and effectively turn back the tide of popular enthusiasm?" And it was immediately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this sermon that the doubts and disappointments of his disgruntled adherents grew into unconscious opposition and eventually turned into actual hatred. It was after this sermon in the synagogue that Judas Iscariot entertained his first conscious thought of deserting. But he did, for the time being, effectively master all such inclinations.

153:1.6 (1708.5) Everyone was in a state of perplexity. Jesus had left them dumfounded and confounded. He had recently engaged in the greatest demonstration of supernatural power to characterize his whole career.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was the one event of his earth life which made the greatest appeal to the Jewish concept of the expected Messiah. But this extraordinary advantage was immediately and unexplainedly offset by his prompt and unequivocal refusal to be made king.

153:1.7 (1709.1) On Friday evening, and again on

들이 아이루스에게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시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요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아이루스는 단지 모든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이 요청에 승낙을 했으며, 이제 와서 나의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신(新)시대의 설교

예수는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만약 이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적들로 너희를 치게 하여 이 세상 왕국에서 너희를 없앨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그리고 네가 네 위에 세운 임금을 낫선 민족의 손안에 둘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경악의 대상과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낫선 자들이 드높여져 권함을 가질 것이고 반면 너희는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언제까지나 임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배척하여 나오게 될 너희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야 할 것이고 쇠로 만든 이러한 이국의 멍애를 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먼 곳에서, 땅 끝으로부터 한 민족을 불러들여 너희를 배척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사나운 모습의 민족이며 너희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매우 존중하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온 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적들의 너희에 대한 암제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위기간 동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의 열매인 너희 아들과 딸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다 읽으신 후에, 선지자에 관한 것으로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읽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하인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의 집에서 이 말을 하자, 사제들과 선지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고하라고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게 되자, 그 사제들과 선생들이 그를 붙잡고 말하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쌌다. 유대의 영주들이 이 일을 듣고 예레미야를 심판하러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선생들이 영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우리 도시에 반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영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들은 모든 말로써 이 집과 이 도시를 반대하는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길과 행

Sabbath morning, the Jerusalem leaders had labored long and earnestly with Jairus to prevent Jesus’ speaking in the synagogue, but it was of no avail. Jairus’s only reply to all this pleading was: “I have granted this request, and I will not violate my word.”

2. THE EPOCHAL SERMON

153:2.1 (1709.2) Jesus introduced this sermon by reading from the law as found in Deuteronomy: “But it shall come to pass, if this people will not hearken to the voice of God, that the curses of transgression shall surely overtake them. The Lord shall cause you to be smitten by your enemies; you shall be removed in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the Lord shall bring you and the king you have set up over you into the hands of a strange nation. You shall become an astonishmen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nations.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go into captivity. The strangers among you shall rise high in authority while you are brought very low. And these things shall be upon you and your seed forever because you would not hearken to the word of the Lord. Therefore shall you serve your enemies who shall come against you. You shall endure hunger and thirst and wear this alien yoke of iron. The Lord shall bring against you a nation from afar, from the end of the earth, a nation whose tongue you shall not understand, a nation of fierce countenance, a nation which will have little regard for you. And they shall besiege you in all your towns until the high fortified walls wherein you have trusted come down; and all the land shall fall into their hand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you will be driven to eat the fruit of your own bodies, the flesh of your sons and daughters, during this time of siege, because of the straitness wherewith your enemies shall press you.”

153:2.2 (1709.3) And when Jesus had finished this reading, he turned to the Prophets and read from Jeremiah: “If you will not hearken to the words of my servants the prophets whom I have sent you, then will I make this house like Shiloh, and I will make this city a curse to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the priests and the teachers heard Jeremiah speak these words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Jeremiah had made an end of speaking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to speak to all the people, the priests and teachers laid hold of him, saying, ‘You shall surely die.’ And all the people crowded around Jeremiah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when the princes of Judah heard these things, they sat in judgment on Jeremiah. Then spoke the priests and the teachers to the princes and to all the people, saying: ‘This man is worthy to die, for he has prophesied against our city, and you have heard him with your own ears.’ Then spoke

위를 고치고, 주님 너희 하느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고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대로, 옳은 대로 하라.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코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다.’

“그 당시의 사제들과 선생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는 그의 말로서, 그들은 그를 줄로 달아매어 더러운 구덩이에 밀어 넣어 그가 진흙 속에서 겨드랑이까지 빠지게 하였다. 이것이 그가 임박한 정치적 타락에 대해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이 백성들의 사제들과 종교영도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영적 파멸을 그들에게 감히 경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너희 또한 대담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인도해주는 빛의 길을 걷기 거절하는 사람을 지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을 죽이려고 할 것인가?

“나의 이 세상 임무의 증거로서 너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설교하는 동안, 너희의 힘과 위세의 지위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가 존경하는 것들에 대해 적대하여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에-찬 혼에 대한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고, 이 세상에 하느님 자녀들의 영적 형제 됨,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더욱 증거가 되는 영적 변환과 갱생에 추가하여, 많은 물질적 이적의 현시 활동을 허락하였다.

“내 손에서 너희가 찾는 새로운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선언하겠는데 너희는 이미 너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 오늘 내 앞에 앉은 많은 이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할지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 선조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했듯이, 오늘 너희 중의 많은 이가 갈림길에 서있다.

“너희 중의 일부는, 호수 건너편에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후 내가 안 보이자, 그 일주일 전 폭풍 있을 때 근처에 대피하고 있던 티베리아스의 어선을 전세 내어 타고 나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진리나 정의로움이나 혹은 너

Jeremiah to all the princes and to all the people: ‘The Lord sent me to prophesy against this house and against this city all the words which you have heard. Now, therefore, amend your ways and reform your doings and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that you may escape the evil which has been pronounced against you. As for me, behold I am in your hands. Do with me as seems good and right in your eyes. But know you for certain that, if you put me to death, you shall bring innocent blood upon yourselves and upon this people, for of a truth the Lord has sent me to speak all these words in your ears.’

153:2.3 (1710.1) “The priests and teachers of that day sought to kill Jeremiah, but the judges would not consent, albeit, for his words of warning, they did let him down by cords in a filthy dungeon until he sank in mire up to his armpits. That is what this people did to the Prophet Jeremiah when he obeyed the Lord’s command to warn his brethren of their impending political downfall. Today, I desire to ask you: What will the chief priests and religious leaders of this people do with the man who dares to warn them of the day of their spiritual doom? Will you also seek to put to death the teacher who dares to proclaim the word of the Lord, and who fears not to point out wherein you refuse to walk in the way of light which leads to the entrance to the kingdom of heaven?

153:2.4 (1710.2) “What is it you seek as evidence of my mission on earth? We have left you undisturbed in your positions of influence and power while we preached glad tidings to the poor and the outcast. We have made no hostile attack upon that which you hold in reverence but have rather proclaimed new liberty for man’s fear-ridden soul. I came into the world to reveal my Father and to establish on earth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And notwithstanding that I have so many times reminde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still has my Father granted you many manifestations of material wonders in addition to more evidential spiritual transformations and regenerations.

153:2.5 (1710.3) “What new sign is it that you seek at my hands? I declare that you already have sufficient evidence to enable you to make your decision. Verily, verily, I say to many who sit before me this day, you are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hoosing which way you will go; and I say to you, as Joshua said to your forefathers, ‘choose you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Today, many of you stand at the parting of the ways.

153:2.6 (1710.4) “Some of you, when you could not find me after the feasting of the multitude on the other side, hired the Tiberias fishing fleet, which a week before had taken shelter near by during a storm, to go in pursuit of me, and what for? Not for

희의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돌보는 방법을 좀 더 알고자 함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빵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혼들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편안하게 얻는 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너희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선택된 백성에게 유쾌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웠다. 그러므로 그렇게 배워온 너희가 빵과 생선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러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다. 나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있는 신앙을 양육하기 위하여 왔다.

“나의 형제들아, 썩어질 고기를 열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음식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받아먹을 모든 자들에게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생명을 한량없이 풍성히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하느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물으면, 나의 대답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 새 회당의 들보를 장식하고 있는, 포도송이로 장식되어 있는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였다: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하늘의 빵—를 먹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빵이었다. 모세는 너희 선조들에게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으나, 나의 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의 빵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달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아왔고, 나와 함께 살아 왔으며, 나의 일을 보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에게—두려워함이 없으리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온 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단호하게 선언하겠는데, 내가 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마지막 뜻이며,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제는 단지 내가 육신의 빵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오늘은 너의 굶주린 혼을 위하여 생명의 빵을 준다. 너희가 그렇게 기꺼이 이 세상의 빵을 먹었던 것같이, 이제 이 영의 빵을 먹겠느냐?”

예수가 회중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 중 하나(산헤드린의 회원)가 일

truth and righteousness or that you might the better know how to serve and minister to your fellow men! No, but rather that you might have more bread for which you had not labored. It was not to fill your souls with the word of life, but only that you might fill the belly with the bread of ease. And long have you been taught that the Messiah, when he should come, would work those wonders which would make life pleasant and easy for all the chosen people. It is not strange, then, that you who have been thus taught should long for the loaves and the fishes. But I declare to you that such is not the mission of the Son of Man. I have come to proclaim spiritual liberty, teach eternal truth, and foster living faith.

153:2.7 (1710.5) “My brethren, hanker not after the meat which perishes but rather seek for the spiritual food that nourishes even to eternal life; and this is the bread of life which the Son gives to all who will take it and eat, for the Father has given the Son this life without measure. And when you asked me, ‘What must we do to perform the works of God?’ I plainly told you: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him whom he has sent.’”

153:2.8 (1710.6) And then said Jesus, pointing up to the device of a pot of manna which decorated the lintel of this new synagogue, and which was embellished with grape clusters: “You have thought that your forefathers in the wilderness ate manna — the bread of heaven — but I say to you that this was the bread of earth. While Moses did not give your fathers bread from heaven, my Father now stands ready to give you the true bread of life. The bread of heaven is that which comes down from God and gives eternal life to the men of the world. And when you say to me, Give us this living bread, I will answer: I am this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shall not hunger, while he who believes me shall never thirst. You have seen me, lived with me, and beheld my works, yet you believe not that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But to those who do believe — fear not. All those led of the Father shall come to me, and he who comes to me shall in nowise be cast out.

153:2.9 (1711.1) “And now let me declare to you, once and for all time, that I have come down upon the earth,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his is the final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I should not lose one. And this is the will of the Father: That every one who beholds the Son and who believes him shall have eternal life. Only yesterday did I feed you with bread for your bodies; today I offer you the bread of life for your hungry souls. Will you now take the bread of the spirit as you then so willingly ate the bread of this world?”

153:2.10 (1711.2) As Jesus paused for a moment to look over the congregation, one of the teachers

어서서 질문하였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빵이며, 모세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으로 내가 납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바로 납득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이 무렵에 회당 안에서는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소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였다: “인내심을 가져라. 진리는 결코 정직한 시험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것만 오직 행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글에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영은 사람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 온 아들, 그는 아버지를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곧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빵을, 사람이 그것으로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된다. 거듭하여 말하겠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줄 이 생명의 빵은 나 자신의 생명이며 또한 통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전 일생을 바쳐 나타내주려는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주는 나의 구원의 선물이다.”

예수가 말씀을 끝마치자, 회당의 통치자는 회중을 해산시켰으나,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더 많은 질문을 하였고, 한편 다른 이들은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논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자들의 사태는 세 시간이상이나 지속되었다. 그 청중들이 마침내 해산된 것은 일곱 시가 한참 지난 뒤였다.

제 3 장. 끝난 뒤의 모임

이 끝난 뒤의 모임에서 예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혼동되어 있던 제자들로부터 얼마간의 질문이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것들이 오직 그를 난

from Jerusalem (a member of the Sanhedrin) rose up and asked: “Do I understand you to say that you are the bread which comes down from heaven, and that the manna which Moses gave to our fathers in the wilderness did not?” And Jesus answered the Pharisee, “You understood aright.” Then said the Pharisee: “But are you not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 the carpenter? Are not your father and mother, as well as your brothers and sisters, well known to many of us? How then is it that you appear here in God’s house and declare that you have come down from heaven?”

153:2.11 (1711.3) By this time there was much murmuring in the synagogue, and such a tumult was threatened that Jesus stood up and said: “Let us be patient; the truth never suffers from honest examination. I am all that you say but more. The Father and I are one; the Son does only that which the Father teaches him, while all those who are given to the Son by the Father, the Son will receive to himself. You have read where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You shall all be taught by God,’ and that ‘Those whom the Father teaches will hear also his Son.’ Every one who yields to the teaching of the Father’s indwelling spirit will eventually come to me. Not that any man has seen the Father, but the Father’s spirit does live within man. And the Son who came down from heaven, he has surely seen the Father. And those who truly believe this Son already have eternal life.

153:2.12 (1711.4) “I am this bread of life. Your fathers at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But this bread which comes down from God, if a man eats thereof, he shall never die in spirit. I repeat, I am this living bread, and every soul who attains the realization of this united nature of God and man shall live forever. And this bread of life which I give to all who will receive is my own living and combined nature. The Father in the Son and the Son one with the Father — that is my life-giving revelation to the world and my saving gift to all nations.”

153:2.13 (1711.5)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 ruler of the synagogue dismissed the congregation, but they would not depart. They crowded up around Jesus to ask more questions while others murmured and disputed among themselves. And this state of affairs continued for more than three hours. It was well past seven o’clock before the audience finally dispersed.

3. THE AFTER MEETING

153:3.1 (1712.1) Many were the questions asked Jesus during this after meeting. Some were asked by his perplexed disciples, but more were asked

처하게 하고 텃을 씹우기를 원했던 비신도 들로부터 질문되었다.

방문 중인 바리새인 하나가 등불 받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질문을 소리쳐 물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살이 생명의 빵이거나 나의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육신으로 사는 나의 생명이 하늘의 빵이 증여된 것이라고 말할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 안에 증여된 사실과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현상은, 신성한 양식과 동등한 그러한 체험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을 수 없고 내 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내가 영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과 같이, 너희도 영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참으로 생명의 빵인, 그리고 필사 육신의 모습 안에 증여되어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영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참된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에 의하여 혼(魂) 안에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아버지는 그가 얼마나 모든 인간들에게 내주하여 지도하기를 열망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내주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언제까지나 찾아 나서도록 영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이 생명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와 그의 사도들을 관찰하던 예루살렘의 첩자 하나가 말하였다: “당신이나 당신의 사도들은 빵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당신은 더럽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러한 실천 관행은 장로들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물 잔이나 식기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법을 당신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너희 전통의 법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 계명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하다면 너의 재산을 나누어주라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전통의 율법은 불효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을 돈을 ‘하느님에게 드리지게’ 되었다고 말할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로들의 법은 책임감 없는 자녀들에게 핑계를 제공하여 주며, 결국 그러한 모든 재산을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 자신의 전통으로 계명을 피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너희의 위선을 이사야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명예롭게 여기되, 그들의 가슴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敬拜)한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에 빨리 매달리는데 반하

by caviling unbelievers who sought only to embarrass and entrap him.

153:3.2 (1712.2) One of the visiting Pharisees, mounting a lampstand, shouted out this question: “You tell us that you are the bread of life. How can you give us your flesh to eat or your blood to drink? What avail is your teaching if it cannot be carried out?” And Jesus answered this question, saying: “I did not teach you that my flesh is the bread of life nor that my blood is the water thereof. But I did say that my life in the flesh is a bestowal of the bread of heaven. The fact of the Word of God bestowed in the flesh and the phenomenon of the Son of Man subject to the will of God, constitute a reality of experience which is equivalent to the divine sustenance. You cannot eat my flesh nor can you drink my blood, but you can become one in spirit with me even as I am one in spirit with the Father. You can be nourished by the eternal word of God, which is indeed the bread of life, and which has been bestow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you can be watered in soul by the divine spirit, which is truly the water of life. The Father has sent me into the world to show how he desires to indwell and direct all men; and I have so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as to inspire all men likewise ever to seek to know and do the will of the indwelling heavenly Father.”

153:3.3 (1712.3) Then one of the Jerusalem spies who had been observing Jesus and his apostles, said: “We notice that neither you nor your apostles wash your hands properly before you eat bread. You must well know that such a practice as eating with defiled and unwashed hands is a transgression of the law of the elders. Neither do you properly wash your drinking cups and eating vessels. Why is it that you show such disrespect for the traditions of the fathers and the laws of our elders?” And when Jesus heard him speak, he answered: “Why is it that you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God by the laws of your tradition? The commandment say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directs that you share with them your substance if necessary; but you enact a law of tradition which permits undutiful children to say that the money wherewith the parents might have been assisted has been ‘given to God.’ The law of the elders thus relieves such crafty children of their responsibility, notwithstanding that the children subsequently use all such monies for their own comfort. Why is it that you in this way make void the commandment by your own tradition?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saying: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their doctrines the precepts of men.’

153:3.4 (1712.4) “You can see how it is that you desert

여, 그 계명을 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안, 너희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거부한다.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는 감히 율법(律法)과 선지자(先知者)들 위에 너희 자신의 가르침을 세워놓는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참석해 있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였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서부터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듣는 이들 중의 어떤 이들에게 불필요하게 걸림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너 또한 납득하기가 어려우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을 알지 않느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너의 관심을 두어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할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들 선생의 많은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진다는 것을 너는 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내가 말할 동안에 잘 들어라. 내가 선언하건대, 입으로 몸에 들어가거나 눈이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가슴 안에서 기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신성치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표현이 발견되는 그 같은 악에 의해서만 더럽혀진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사악한 프로젝트, 도둑질, 간음과 질투, 자부심, 분노, 복수, 욕지거리, 거짓증거가 나오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입을 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바리새인 위원들은 예수가 신성모독 죄명으로도 혹은 유대의 신성한 율법을 우롱한 명목으로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신념을 거의 굳혔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가 소위 민족의 구전(口傳) 율법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법에 대하여 논쟁하고 공격하도록 그를 유도하였다. 아무리 물이 귀하더라도 이들 관습에 얽매인 유대인들은 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필수적인 의식(儀式)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 첩자들은 예수가 “구원은 깨끗한 손보다는 깨끗한 가슴의 문제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들은, 일단 자신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면 그로부터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까지도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이러한 많은 전통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었으며, 단지 끝에 가서야 비상하고 생생한 꿈을 체험한 후에 드디어 해방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들 유대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매춘부와 거래하는 만큼이나 수치스럽

the commandment while you hold fast to the tradition of men. Altogether willing are you to reject the word of God while you maintain your own traditions. And in many other ways do you dare to set up your own teachings above the law and the prophets.”

153:3.5 (1712.5) Jesus then directed his remarks to all present. He said: “But hearken to me, all of you. It is not that which enters into the mouth that spiritually defiles the man, but rather that which proceeds out of the mouth and from the heart.” But even the apostles failed fully to grasp the meaning of his words, for Simon Peter also asked him: “Lest some of your hearers be unnecessarily offended, would you explain to us the meaning of these words?” And then said Jesus to Peter: “Are you also hard of understanding? Know you not that every plant which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shall be rooted up? Turn now your attention to those who would know the truth. You cannot compel men to love the truth. Many of these teachers are blind guides. And you know that, if the blind lead the blind, both shall fall into the pit. But hearken while I tell you the truth concerning those things which morally defile and spiritually contaminate men. I declare it is not that which enters the body by the mouth or gains access to the mind through the eyes and ears, that defiles the man. Man is only defiled by that evil which may originate within the heart, and which finds expression in the words and deeds of such unholy persons. Do you not know it is from the heart that there come forth evil thoughts, wicked projects of murder, theft, and adulteries, together with jealousy, pride, anger, revenge, railings, and false witness? And it is just such things that defile men, and not that they eat bread with ceremonially unclean hands.”

153:3.6 (1713.1) The Pharisaic commissioners of the Jerusalem Sanhedrin were now almost convinced that Jesus must be apprehended on a charge of blasphemy or on one of flouting the sacred law of the Jews; wherefore their efforts to involve him in the discussion of, and possible attack upon, some of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or so-called oral laws of the nation. No matter how scarce water might be, these traditionally enslaved Jews would never fail to go through with the required ceremonial washing of the hands before every meal. It was their belief that “it is better to die than to transgress the commandments of the elders.” The spies asked this question because it had been reported that Jesus had said, “Salvation is a matter of clean hearts rather than of clean hands.” But such beliefs, when they once become a part of one's religion, are hard to get away from. Even many years after this day the Apostle Peter was still held in the bondage of fear to many of these traditions about things clean and unclean, only being finally delivered by experiencing an extraordinary and vivid dream. All of this can the

게 여겼고, 그 둘 모두 추방을 당할 만한 벌을 받기도 마땅하다고 여긴 것을 기억하면 보다 쉽게 납득될 수 있다.

따라서 주(主)는, 성서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신성하게 여겨졌고 더 많이 유대인들을 묶어 놓고 있었던 구전 율법—장로들의 법—으로 대표되는 규칙과 규제에서의 전체적인 랍비제도의 어리석음을 진상을 밝히고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종교 영도자들과의 파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거리낌 없이 말씀하였다.

제 4 장. 회당에서의 마지막 말

이 경배 후의 모임에서 토론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 앞에 견갑을 수 없고 반역한 영에 사로잡혀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젊은이를 데려 왔다. 이 미친 젊은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통 받는 자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主)가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을 때, 그는 연민으로 감동되어서, 그 젊은이를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손으로 그를 붙잡고 말씀하였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로부터 나오너라. 네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너의 충성스러운 동료 중의 하나에게 내가 명령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정상으로 되었고 그리고 제 정신의 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가 실제로 인간 존재로부터 “악령”을 내쫓았던 첫 번째의 경우였다. 이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경우였으며, 그러한 일은 그 시절에 그리고 오순절 바로 전까지, 주(主)의 영이 모든 육신들 위에 쏟아 부어지자, 불안정한 부류의 인간존재를 그렇게 이용해 왔던 천상의 반역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된 바로 그 때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경탄을 하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 비난하기를, 예수가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한 언어는 그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공표하기를,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과 영도자들은 예수가 행한 소위 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마귀들의 영주인 바알세불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바리새인이 말하였다: “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리 없다. 그는 사탄과 동반자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왕국이 그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되면 그 집이 곧 망하는 법이다. 성(城)이 만일 연합되지 못하면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만일 사

better be understood when it is recalled that these Jews looked upon eating with unwashed hands in the same light as commerce with a harlot, and both were equally punishable by excommunication.

153:3.7 (1713.2) Thus did the Master elect to discuss and expose the folly of the whole rabbinic system of rules and regulations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oral law —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all of which were regarded as more sacred and more binding upon the Jews than even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And Jesus spoke out with less reserve because he knew the hour had come when he could do nothing more to prevent an open rupture of relations with these religious leaders.

4. LAST WORDS IN THE SYNAGOGUE

153:4.1 (1713.3) In the midst of the discussions of this after meeting, one of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brought to Jesus a distraught youth who was possessed of an unruly and rebellious spirit. Leading this demented lad up to Jesus, he said: “What can you do for such affliction as this? Can you cast out devils?” And when the Master looked upon the youth,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and, beckoning for the lad to come to him, took him by the hand and said: “You know who I am; come out of him; and I charge one of your loyal fellows to see that you do not return.” And immediately the lad was normal and in his right mind. And this is the first case where Jesus really cast an “evil spirit” out of a human being. All of the previous cases were only supposed possession of the devil; but this was a genuine case of demoniac possession, even such as sometimes occurred in those days and right up to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Master’s spirit was poured out upon all flesh, making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se few celestial rebels to take such advantage of certain unstable types of human beings.

153:4.2 (1714.1) When the people marveled, one of the Pharisees stood up and charged that Jesus could do these things because he was in league with devils; that he admitted in the language which he employed in casting out this devil that they were known to each other; and he went on to state that the religious teachers and leaders at Jerusalem had decided that Jesus did all his so-called miracles by the power of Beelzebub, the prince of devils. Said the Pharisee: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man; he is in partnership with Satan.”

153:4.3 (1714.2) Then said Jesu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A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f a house be divided against itself, it is soon brought to desolation. Can a city withstand a siege if it is not united? If Satan casts out Satan,

탄이 사탄을 추방하면, 그는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들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너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로서 너희 심판을 삼으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진실로 너희에게 와 있다 너희가 편견 때문에 눈이 멀고 두려움과 자부심 때문에 잘못된 인도되지만 았았더라면, 너희는 마귀보다 더 위대한 자가 너희 가운데에 서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배척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가 눈을 밝히 뜨고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악마들의 일이라고 고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엄숙히 경고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신성모독죄도 용서되지만, 누구든지 깊은 궁리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끈질긴 사악한 불의의 일꾼들은 결코 용서함을 찾아 나서지도, 또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용서함을 영원히 거부한 죄를 지은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림길에 서있게 되었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뜻과 자아-선택한 어둠의 길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결정해야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너희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 열매도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 열매도 썩게 만들든지 해야만 했다.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러나 너희 중 일부, 독사처럼 있는 자들이 이미 악을 택하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겠느냐? 결국은, 너희 가슴에 가득한 악을 너희 입이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가르치실 권리를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예증된 표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믿음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이미 가진 것과 사람의 아들이 너희로부터 떠나갈 때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그것들 이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을 끝마치셨을 때, 사도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는 그리고 그를 회당으로부터 모시고 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벳세다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다. 그들은 주(主)의 가르치는 방식의 갑작스런 변화로 모두 놀랐고 약간의 두려움마저도 느꼈다. 그들은 주(主)가 그렇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았다.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shall his kingdom stand? But you should know that no one can enter into the house of a strong man and despoil his goods except he first overpower and bind that strong man. And so, if I by the power of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shall they be your judges. But if I, by the spirit of God, cast out devils, then has the kingdom of God truly come upon you. If you were not blinded by prejudice and misled by fear and pride, you would easily perceive that one who is greater than devils stands in your midst. You compel me to declare that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while he who gathers not with me scatters abroad. Let me utter a solemn warning to you who would presume, with your eyes open and with premeditated malice, knowingly to ascribe the works of God to the doings of devils! Verily, verily, I say to you, all your sins shall be forgiven, even all of your blasphemies, but whosoever shall blaspheme against God with deliberation and wicked intention shall never obtain forgiveness. Since such persistent workers of iniquity will never seek nor receive forgiveness, they are guilty of the sin of eternally rejecting divine forgiveness.

153:4.4 (1714.3) “Many of you have this day come to the parting of the ways; you have come to a beginning of the making of the inevitable choice between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self-chosen ways of darkness. And as you now choose, so shall you eventually be. You must either make the tree good and its fruit good, or else will the tree become corrupt and its fruit corrupt. I declare that in my Father's eternal kingdom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s. But some of you who are as vipers, how can you, having already chosen evil, bring forth good fruits? After all, out of the abundance of the evil in your hearts your mouths speak.”

153:4.5 (1714.4) Then stood up another Pharisee, who said: “Teacher, we would have you give us a predetermined sign which we will agree upon as establishing your authority and right to teach. Will you agree to such an arrangement?”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This faithless and sign-seeking generation seeks a token, but no sign shall be given you other than that which you already have, and that which you shall see when the Son of Man departs from among you.”

153:4.6 (1714.5)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is apostles surrounded him and led him from the synagogue. In silence they journeyed home with him to Bethsaida. They were all amazed and somewhat terror-stricken by the sudden change in the Master's teaching tactics. They were wholly unaccustomed to seeing him perform in such a militant manner.

제 5 장. 토요일 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가 그의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서 놓았고 그들의 한껏 부풀은 기대를 꺾어 왔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실망과 슬픔 속으로 몰아 놓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절망과 더불어 그들의 안전에 대한 실제 두려움까지 겹쳤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완벽한 배척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예기치 못한 대담함과 확고한 결정에 얼마간 겁이 났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의 갑작스런 가르침의 방법의 변화에 매우 당황되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그들은 좀 더 공격적인 이 태도에 환영을 표명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일어났던 그 일은 그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근심 걱정 외에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가 식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을 다락방에 홀로 올라가 계셨다. 자정 가까이에 전도자들의 영도자인 요압이 돌아와서 그에게 연관-동료들의 약 삼분의 일이 목적을 포기하여 가버렸다고 보고하였다. 밤 내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오가면서 주(主)를 향한 감정의 돌변이 가버나움에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영도자들은 이러한 불신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빠른 행동을 개시하였고,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험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여자 대원들은 베드로의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 그들은 엄청나게 격동되었으나, 아무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예수가 다락방에서 내려와 약 30명 의 12사도 그리고 그들의 연관-동료 가운데로 오신 시간은 자정이 좀 지난 후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왕국이 이렇게 사람을 채질하여 선별한다는 것이 너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모든 혼란을 받고서도, 어째서 여전히 내 말에 흔들리는지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왕국이 그러한 미지근한 군중들과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을 벗겨내어 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대경실색하느냐? 하늘의 왕국의 영적 가르침이 새로운 영광으로 빛나며, 새날이 동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슬퍼한단 말이나? 너희가 이 시험도 견디기 어려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할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내가 이 세상으로 오기 이전의 곳으로 올라갈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되살아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육신과 그것에 속한 것은 모두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5. THE SATURDAY EVENING

153:5.1 (1715.1) Time and again had Jesus dashed to pieces the hopes of his apostles, repeatedly had he crushed their fondest expectations, but no time of disappointment or season of sorrow had ever equaled that which now overtook them. And, too, there was now admixed with their depression a real fear for their safety. They were all surprisingly startled by the suddenness and completeness of the desertion of the populace. They were also somewhat frightened and disconcerted by the unexpected boldness and assertive determination exhibited by the Pharisee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But most of all they were bewildered by Jesus' sudden change of tactics.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they would have welcomed the appearance of this more militant attitude, but coming as it did, along with so much that was unexpected, it startled them.

153:5.2 (1715.2) And now, on top of all of these worries, when they reached home, Jesus refused to eat. For hours he isolated himself in one of the upper rooms. It was almost midnight when Joab, the leader of the evangelists, returned and reported that about one third of his associates had deserted the cause. All through the evening loyal disciples had come and gone, reporting that the revulsion of feeling toward the Master was general in Capernaum. The leaders from Jerusalem were not slow to feed this feeling of disaffection and in every way possible to seek to promote the movement away from Jesus and his teachings. During these trying hours the twelve women were in session over at Peter's house. They were tremendously upset, but none of them deserted.

153:5.3 (1715.3) It was a little after midnight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upper chamber and stood among the twelve and their associates, numbering about thirty in all. He said: "I recognize that this sifting of the kingdom distresses you, but it is unavoidable. Still, after all the training you have had, was there any good reason why you should stumble at my words? Why is it that you are filled with fear and consternation when you see the kingdom being divested of these lukewarm multitudes and these halfhearted disciples? Why do you grieve when the new day is dawning for the shining forth in new glory of the spiritual teachings of the kingdom of heaven? If you find it difficult to endure this test, what, then, will you do when the Son of Man must return to the Father? When and how will you prepare yourselves for the time when I ascend to the place whence I came to this world?

153:5.4 (1715.4) "My beloved, you must remember that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s; the flesh and all that pertains thereto is of little profit. The words which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Be of good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나날들의 명백한 말이 많은 자에게 걸림이 되리라. 너희는 이미 나의 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나는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신도들이 도중에 떨어져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 12사람들을 특히 선택하여 왕국의 대사들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오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아라, 이는 너희 중의 하나가 심각한 위험 안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을 끝마치시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슬프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主)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主)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으며, 항상 당신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主)를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기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들 모두는 그의 충성의 서약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하나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가서 쉬어라. 바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활발히 일할 날들이 목전에 와 있다.”.

cheer! I have not deserted you. Many shall be offended by the plain speaking of these days. Already you have heard that many of my disciples have turned back; they walk no more with me. From the beginning I knew that these halfhearted believers would fall out by the way. Did I not choose you twelve men and set you apart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now at such a time as this would you also desert? Let each of you look to his own faith, for one of you stands in grave danger.”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Simon Peter said: “Yes, Lord, we are sad and perplexed, but we will never forsake you. You have taught us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believed in you and followed with you all this time. We will not turn back, for we know that you are sent by God.” And as Peter ceased speaking, they all with one accord nodded their approval of his pledge of loyalty.

153:5.5 (1716.1) Then said Jesus: “Go to your rest, for busy times are upon us; active days are just ahead.”

제 154 편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나날

⇨ 153

유랜시아 책

15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4 편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나날

섹션

소개

제 1 장. 한 주간의 회의

제 2 장. 일주일의 휴식

제 3 장. 두 번째 티베리아스 회의

제 4 장. 가버나움에서의 토요일 밤

제 5 장. 사건 많은 일요일 아침

제 6 장.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제 7 장. 황급한 도피

PAPER 154

LAST DAYS AT CAPERNAUM

SECTIONS

Introduction

1. A Week of Counsel

2. A Week of Rest

3. The Second Tiberias Conference

4. Saturday Night in Capernaum

5. The Eventful Sunday Morning

6. Jesus' Family Arrives

7. The Hasty Flight

소개

4월 30일 그 사건 많은 토요일 밤에 예수가 그의 풀이 죽고 어리둥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티베리아스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특별 위원들의 집단사이에 협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시켜 분쟁을 피하고 있으며, 반역까지도 시도하리라는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그를 정치범으로 체포하기를 거절하였다. 헤롯의 충고자들이 그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했던 일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했었는지 호수 건너편에서의 에피소드를 정확하게 보고했었다.

헤롯의 공인된 가족의 한 사람인 추자의 부인이 여자 사명활동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추자는 헤롯에게 예수는 이 세상 통치에서의 관련사에 관한 간섭은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가 오로지 관여했던 그것은 그의 신도들의 영적 형제신분을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 형제신분을 그가 하늘의 왕국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는 추자의 보고에 신뢰하였고, 아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을 거절하였다. 헤롯은 또한 이때에, 세레자

INTRODUCTION

^{154:0.1 (1717.1)} ON THE eventful Saturday night of April 30, as Jesus was speaking words of comfort and courage to his downcast and bewildered disciples, at Tiberias a council was being held between Herod Antipas and a group of special commissioners representing the Jerusalem Sanhedrin. These scribes and Pharisees urged Herod to arrest Jesus; they did their best to convince him that Jesus was stirring up the populace to dissension and even to rebellion. But Herod refused to take action against him as a political offender. Herod's advisers had correctly reported the episode across the lake when the people sought to proclaim Jesus king and how he rejected the proposal.

^{154:0.2 (1717.2)} One of Herod's official family, Chuza, whose wife belonged to the women's ministering corps, had informed him that Jesus did not propose to meddle with the affairs of earthly rule; that he was only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his believers, which brotherhood he called the kingdom of heaven. Herod had confidence in Chuza's reports, so much so that he refused to interfere with Jesus' activities. Herod was also influenced at this time,

요한에 관한 그의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헤롯은 변절한 유대인들 중의 하나로서, 아무 것도 믿지 않는 반면에 또한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이 항상 양심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음모에 끼여 들기를 꺼려하였다. 그는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선지자나 비교적 해가 없는 종교적 열광자로 보았다.

유대인들이 그가 반역자를 보호한다고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를 협박하자, 헤롯은 회의장에서 그들을 당장 퇴장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은 일주일 동안 유보되었고, 그 동안 예수는 급하게 다가올 분산에 대하여 그의 추종자들을 준비시켰다.

제 1 장. 한 주간의 회의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수는 세베대의 집에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매우 친밀한 조언을 주었다. 단지 단련 받고, 믿을만한 제자들만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때쯤에는 바리새인들의 반대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도덕적 용기를 가졌으며,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예수께 속해 있다고 선언했던 제자들은 겨우 100여명 정도였다. 이 집단을 데리고 예수는 아침, 오후, 저녁 회합들을 가졌다. 해변에서는 질문을 하러 온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거기에서 약간의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강연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집단은 거의 50명을 넘지 못하였다.

이 주일의 금요일에 가버나움 회당의 통치자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느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이 처사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의 음모로 이루어졌다. 야이루스는 우두머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사직하고, 공공연하게 예수와 합세하였다.

마지막 해변 회합이 5월 7일 안식일 오후에 있었다. 예수가 그때에 모여 있던 150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토요일 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의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썰물인 때였다. 이때 이후로는 안정적인, 느렸지만, 호의적인 정서로 좀 더 건강하고 믿을만한 성장이 있었다; 새로운 추종자가 영적 신앙과 진정한 종교적 체험 속에 더욱 튼튼한 기초를 이루는 무리로 모여졌다. 주(主)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왕국에 대한 물질적인 개념과 예수가 가르쳤던 좀 더 이상적이며 영적 개념사이에서의 다소간 혼합되고 타협적이었던 과도기 단계가 이제 그 종말을 고하였다. 이 때 이후로는 그 범위에서 더욱 넓게, 그리고 그 영적 함축성에서 더욱 멀리-퍼짐 속에서 왕국 복음의 더욱 공개적인 선포가 되었다.

in his attitude toward Jesus, by his superstitious fear of John the Baptist. Herod was one of those apostate Jews who, while he believed nothing, feared everything. He had a bad conscience for having put John to death, and he did not want to become entangled in these intrigues against Jesus. He knew of many cases of sickness which had been apparently healed by Jesus, and he regarded him as either a prophet or a relatively harmless religious fanatic.

154:0.3 (1717.3) When the Jews threatened to report to Caesar that he was shielding a traitorous subject, Herod ordered them out of his council chamber. Thus matters rested for one week, during which time Jesus prepared his followers for the impending dispersion.

1. A WEEK OF COUNSEL

154:1.1 (1717.4) From May 1 to May 7 Jesus held intimate counsel with his followers at the Zebedee house. Only the tried and trusted disciples were admitted to these conferences. At this time there were only about one hundred disciples who had the moral courage to brave the opposition of the Pharisees and openly declare their adherence to Jesus. With this group he held sessions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Small companies of inquirers assembled each afternoon by the seaside, where some of the evangelists or apostles discoursed to them. These groups seldom numbered more than fifty.

154:1.2 (1717.5) On Friday of this week official action was taken by the rulers of the Capernaum synagogue closing the house of God to Jesus and all his followers. This action was taken at the instigation of the Jerusalem Pharisees. Jairus resigned as chief ruler and openly aligned himself with Jesus.

154:1.3 (1718.1) The last of the seaside meetings was held on Sabbath afternoon, May 7. Jesus talked to less than one hundred and fifty who had assembled at that time. This Saturday night marked the time of the lowest ebb in the tide of popular regard for Jesus and his teachings. From then on there was a steady, slow, but more healthful and dependable growth in favorable sentiment; a new following was built up which was better grounded in spiritual faith and true religious experience. The more or less composite and compromising transition stage between the materialistic concepts of the kingdom held by the Master's followers and those more idealistic and spiritual concepts taught by Jesus, had now definitely ended. From now on there was a more open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its larger scope and in its far-flung spiritual implications.

제 2 장. 일주일의 휴식

기원후 29년, 5월 8일, 일요일에 산헤드린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는 법령을 통과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에 의한 새롭고 전례에 없던 권리 침해였다. 그때까지는 각 회당은 하나의 독립된 경배자들의 모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였으며, 그 자체 이사회와 규칙과 지도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단지 예루살렘 회당들만이 산헤드린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었다. 산헤드린의 이러한 즉석 결정 이후에 그곳의 5명의 위원들이 사직하였다. 100명의 메신저들이 즉각적으로 이 법령을 전하고 실행시키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 헤브론 회당을 제외한 팔레스타인의 모든 회당은 산헤드린의 이 성명서를 따르기로 하였다. 헤브론 회당의 통치자들은 산헤드린이 자신들의 회중에 대한 그러한 간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예루살렘의 법령을 따르기를 이렇게 거절한 것은 예수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기보다는 회중의 자율성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헤브론 회당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다.

같은 그 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일주일의 휴가(休暇)를 선언하였고,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혼을 쉬게 하며, 또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집이나 친구들에게 가라고 종용하였다. 그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왕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고기를 잡으러 여러 곳을 다니도록 해라.”

휴식을 위한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는 해변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무리들을 방문하실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다윗 세베대와 여러 번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 한편으로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다. 가까이에는 항상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23명의 메신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의 신변 보호와 관련하여 그들의 상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 휴식의 주간에는 어떤 종류의 대중 가르침도 없었다.

이 주간에 나다니엘과 야고보 세베대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다. 그들은 3일을 밤낮으로 고통스런 소화 불량으로 심하게 앓았다. 셋째 날 밤에 예수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쉬도록 보내시고, 자신의 고통 받는 사도들을 돌보셨다. 물론 예수는 이 두 사람들을 즉시 고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의, 이러한 평상시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들이나 아버지의 그 어느 쪽의 방식도 아니다. 결코 한 번도 육신으로서의 그의 사건 많은 일생 동안 내내, 예수는 그의 이 세상(地上)의 가족 중 어느 식구에게나 혹은 그의 측근(側近) 추종자의 어느 누구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초

2. A WEEK OF REST

154:2.1 (1718.2) Sunday, May 8, A.D. 29, at Jerusalem, the Sanhedrin passed a decree closing all the synagogues of Palestine to Jesus and his followers. This was a new and unprecedented usurpation of authority by the Jerusalem Sanhedrin. Theretofore each synagogue had existed and functioned as an independent congregation of worshipers and was under the rule and direction of its own board of governors. Only the synagogues of Jerusalem had been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anhedrin. This summary action of the Sanhedrin was followed by the resignation of five of its members. One hundred messengers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convey and enforce this decree. Within the short space of two weeks every synagogue in Palestine had bowed to this manifesto of the Sanhedrin except the synagogue at Hebron. The rulers of the Hebron synagogue refused to acknowledge the right of the Sanhedrin to exercise such jurisdiction over their assembly. This refusal to accede to the Jerusalem decree was based on their contention of congregational autonomy rather than on sympathy with Jesus' cause. Shortly thereafter the Hebron synagogue was destroyed by fire.

154:2.2 (1718.3) This same Sunday morning, Jesus declared a week's holiday, urging all of his disciples to return to their homes or friends to rest their troubled souls and speak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ir loved ones. He said: "Go to your several places to play or fish while you pray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154:2.3 (1718.4) This week of rest enabled Jesus to visit many families and groups about the seaside. He also went fishing with David Zebedee on several occasions, and while he went about alone much of the time, there always lurked near by two or three of David's most trusted messengers, who had no uncertain orders from their chief respecting the safeguarding of Jesus. There was no public teaching of any sort during this week of rest.

154:2.4 (1718.5) This was the week that Nathaniel and James Zebedee suffered from more than a slight illness. For three days and nights they were acutely afflicted with a painful digestive disturbance. On the third night Jesus sent Salome, James's mother, to her rest, while he ministered to his suffering apostles. Of course Jesus could have instantly healed these two men, but that is not the method of either the Son or the Father in dealing with these commonplace difficulties and afflictions of the children of men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Never once, throughout all of his eventful life in the flesh,

자연적인 사명활동을 베풀지 않았다.

필사 창조체들의 진화하는 혼(魂)의 성장과 발달, 진보적인 완전성을 위하여 제공된 체험훈련의 한 부분으로써, 우주의 어려움을 당면해야만 하고, 행성의 장애물을 마주쳐야만 한다. 인간 혼의 영성화는 광범위한 실제 우주문제들의 교육적인 해결이 되는 직접적인 체험을 요구한다. 동물적인 본성과 낮은 형태의 의지를 가진 창조체는 순탄한 환경 아래에서는 순조롭게 진보하지 않는다. 문제를 가진 환경은, 전력을 다 기울이는 자극과 연결되어지고, 필사 진보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하고 영적 운명의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도달하는데 힘차게 기여하는 그러한 마음, 혼, 그리고 영의 활동을 만들어내도록 도모한다.

제 3 장. 두 번째 티베리아스 회의

5월 16일에 티베리아스에서 예루살렘과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자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영도자들 모두가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유대의 영도자들은 헤롯에게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모든 회당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못하도록 실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보고를 할 수 있었다.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지만, 헤롯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5월 18일에 헤롯은, 만약 유대지방의 로마인 통치자가 그러한 계획에 같은 생각이라면, 산헤드린의 권한으로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종교적인 죄로 재판을 받도록 허락한다는 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는 동안 예수의 적들은 설 새 없이 갈릴리 전역에 헤롯이 예수께 적의를 품었으며,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처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5월 21일 토요일 밤에 예루살렘 정부 당국은 예수가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고 유대민족의 신성한 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죄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헤롯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내린 합의에 아무 이의가 없다는 전갈을 티베리아스에 보내왔다. 따라서 이날 자정 바로 전에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헤롯의 관할권 안에서 예수를 체포하여 그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헤롯이 이 허락을 내리기 전에, 떠안아야 했던 여러 곳에서의 강한 압력이 있었으며, 그는 예수가 예루살렘의 그의 모친 적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제 4 장. 가버나움에서의 토요일 밤

did Jesus engage in any sort of supernatural ministration to any member of his earth family or in behalf of any one of his immediate followers.

^{154:2.5 (1719.1)} Universe difficulties must be met and planetary obstacles must be encountered as a part of the experience training provided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the progressive perfection, of the evolving souls of mortal creatures. The spiritualization of the human soul requires intimate experience with the educational solving of a wide range of real universe problems. The animal nature and the lower forms of will creatures do not progress favorably in environmental ease. Problematic situations, coupled with exertion stimuli, conspire to produce those activities of mind, soul, and spirit which contribute mightily to the achievement of worthy goals of mortal progression and to the attainment of higher levels of spirit destiny.

3. THE SECOND TIBERIAS CONFERENCE

^{154:3.1 (1719.2)} On May 16 the second conference at Tiberias between the authorities at Jerusalem and Herod Antipas was convened. Both the religious and the political leaders from Jerusalem were in attendance. The Jewish leaders were able to report to Herod that practically all the synagogues in both Galilee and Judea were closed to Jesus' teachings. A new effort was made to have Herod place Jesus under arrest, but he refused to do their bidding. On May 18, however, Herod did agree to the plan of permitting the Sanhedrin authorities to seize Jesus and carry him to Jerusalem to be tried on religious charges, provided the Roman ruler of Judea concurred in such an arrangement. Meanwhile, Jesus' enemies were industriously spreading the rumor throughout Galilee that Herod had become hostile to Jesus, and that he meant to exterminate all who believed in his teachings.

^{154:3.2 (1719.3)} On Saturday night, May 21, word reached Tiberias that the civil authorities at Jerusalem had no objection to the agreement between Herod and the Pharisees that Jesus be seized and carried to Jerusalem for trial before the Sanhedrin on charges of flouting the sacred laws of the Jewish nation. Accordingly, just before midnight of this day, Herod signed the decree which authorized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to seize Jesus within Herod's domains and forcibly to carry him to Jerusalem for trial. Strong pressure from many sides was brought to bear upon Herod before he consented to grant this permission, and he well knew that Jesus could not expect a fair trial before his bitter enemies at Jerusalem.

4. SATURDAY NIGHT IN CAPERNAUM

같은 이 날 밤인 토요일에 가버나움에서는 50 명의 영도하는 시민들이 회당에 모여 다음의 중대한 질문을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이야기하고 논쟁해 보았으나, 동의할 볼 아무런 공통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가 어쩌면 메시아, 적어도 성스러운 사람 아니면 아마 선지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약간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회의에서 예수에 대한 견해가 거의 똑 같은 네 개의 집단들로 갈라졌다:

1. 그는 망상적이며 아무 해가 없는 광신자임.
2. 그는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동자임.
3. 그는 악마들과 연대한 자로서 어쩌면 악마들의 영주일지도 모르는 자임.
4. 그는 정신이 나간 자로서 정신적 균형이 잡히지 않은 미친 자임.

일반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었던 예수가 가르치는 교리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다. 그의 적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비 실천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의 관념에 따라 살아가려는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후세 세대들의 사람들도 같은 것을 말하였다. 이 계시를 받는 좀 더 깨우친 시대에도, 지적이고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예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품는 자 모두는 훨씬 더 좋은 문명이 그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과 또 언젠가는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소위 그리스도교라 하는 교리를 따르려는 어정쩡한 시도가 종종 있었기는 하였지만, 이 세상은 결코 예수의 가르침을 큰 규모로 실행하려고 진지하게 애쓴 적이 없었다.

제 5 장. 사건 많은 일요일 아침

예수의 일생에서 5월 22일은 사건 많은 날이었다. 이 일요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의 메신저 하나가 티베리아스로부터 급하게 도착해서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할 것을 이미 허락했거나, 아니면 막 허락하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 급박한 위험의 소식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윗 세배대는 그의 메신저들을 깨워 그 지방의 제자들의 모든 집단들에게 보내어 그날 아침 7시에 비상 회의에 소집하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유다(예수의 동생)의 처제가 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서둘러 가까이 살고 있던 예수의 가족 모두에게로 가서 즉시 세배대의 집으로 모이라는 전갈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급한 소집에 반응하여, 곧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루이 한자리에 모였다.

154:4.1 (1719.4) On this same Saturday night, in Capernaum a group of fifty leading citizens met at the synagogue to discuss the momentous question: “What shall we do with Jesus?” They talked and debated until after midnight, but they could not find any common ground for agreement. Aside from a few persons who inclined to the belief that Jesus might be the Messiah, at least a holy man, or perhaps a prophet, the meeting was divided into four nearly equal groups who held, respectively, the following views of Jesus:

- 154:4.2 (1719.5) 1. That he was a deluded and harmless religious fanatic.
- 154:4.3 (1719.6) 2. That he was a dangerous and designing agitator who might stir up rebellion.
- 154:4.4 (1720.1) 3. That he was in league with devils, that he might even be a prince of devils.
- 154:4.5 (1720.2) 4. That he was beside himself, that he was mad, mentally unbalanced.

154:4.6 (1720.3) There was much talk about Jesus’ preaching doctrines which were upsetting for the common people; his enemies maintained that his teachings were impractical, that everything would go to pieces if everybody made an honest effort to live in accordance with his ideas. And the men of many subsequent generations have said the same things. Many intelligent and well-meaning men, even in the more enlightened age of these revelations, maintain that modern civilization could not have been built upon the teachings of Jesus — and they are partially right. But all such doubters forget that a much better civilization could have been built upon his teachings, and sometime will be. This world has never seriously tried to carry out the teachings of Jesus on a large scale, notwithstanding that halfhearted attempts have often been made to follow the doctrines of so-called Christianity.

5. THE EVENTFUL SUNDAY MORNING

154:5.1 (1720.4) May 22 was an eventful day in the life of Jesus. On this Sunday morning, before daybreak, one of David’s messengers arrived in great haste from Tiberias, bringing the word that Herod had authorized, or was about to authorize, the arrest of Jesus by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The receipt of the news of this impending danger caused David Zebedee to arouse his messengers and send them out to all the local groups of disciples, summoning them for an emergency council at seven o’clock that morning. When the sister-in-law of Jude (Jesus’ brother) heard this alarming report, she hastened word to all of Jesus’ family who dwelt near by, summoning them forthwith to assemble at

이 이른 아침에 예수는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작별의 지도를 하였다. 그들이 곧 가버나움으로부터 해산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얼마 동안의 작별을 일렀다. 그는 모두에게 인도를 하느님께 구할 것이며, 결과에 관계없이 왕국의 일을 수행하라고 지도하였다. 전도사들은 그들을 부를지도 모를 그 때까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대로 수고해야 했다. 그는 그를 동반할 12명의 전도자들을 선택하였다. 12사도들에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12명의 여자 대원들에게는 자기가 그들을 부르러 보낼 때까지, 세베대와 베드로의 집에 남아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예수는 다윗 세베대가 그의 전국에 걸친 메신저 봉사를 계속 담당할 것에 동의하였고 그리고 주(主)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다윗이 말하였다: “주(主)여, 당신의 일로 나아가십시오. 편협한 자들이 주(主)를 체포하도록 하게 하지 마시고, 메신저들이 항상 주(主)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람들은 절대로 주(主)와의 접촉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主)는 다른 지역들에서의 왕국의 일을 들을 수 있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당신께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 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임자까지도 이미 임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도, 설교자도 아니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가슴속에 있고 그리고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날 아침 7시 반경에 예수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방안으로 모여든 거의 백 명이 되는 신도들에게 작별의 말을 시작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엄숙한 분위기 안에 있었으나, 예수는 매우 유쾌해 보였다. 그는 다시 한 번 그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몇 주간의 심각함은 지나갔으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소망, 용기의 말로 영감을 주었다.

제 6 장.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이 일요일 아침 8시경에 예수의 육친의 가족 다섯 명이 유다의 처제의 급한 전갈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의 이 세상 가족들 중에서 단지룻만이 전심으로 그리고 계속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함을 믿었다. 유다와 야고보, 그리고 요셉까지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부심이 그들의 좀 더 나은 판단과 실제적인 영적 성향을 방해하도록 용납하였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랑과 두려움, 모성애와 가족으로서의 자부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그녀는 의심으로 많이 시달렸지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있

Zebedee's house. And in response to this hasty call, presently there were assembled Mary, James, Joseph, Jude, and Ruth.

^{154:5.2 (1720.5)} At this early morning meeting Jesus imparted his farewell instructions to the assembled disciples; that is, he bade them farewell for the time being, knowing well that they would soon be dispersed from Capernaum. He directed them all to seek God for guidance and to carry on the work of the kingdom regardless of consequences. The evangelists were to labor as they saw fit until such time as they might be called. He selected twelve of the evangelists to accompany him; the twelve apostles he directed to remain with him no matter what happened. The twelve women he instructed to remain at the Zebedee house and at Peter's house until he should send for them.

^{154:5.3 (1720.6)} Jesus consented to David Zebedee's continuing his countrywide messenger service, and in bidding the Master farewell presently, David said: "Go forth to your work, Master. Don't let the bigots catch you, and never doubt that the messengers will follow after you. My men will never lose contact with you, and through them you shall know of the kingdom in other parts, and by them we will all know about you. Nothing that might happen to me will interfere with this service, for I have appointed first and second leaders, even a third. I am neither a teacher nor a preacher, but it is in my heart to do this, and none can stop me."

^{154:5.4 (1720.7)} About 7:30 this morning Jesus began his parting address to almost one hundred believers who had crowded indoors to hear him. This was a solemn occasion for all present, but Jesus seemed unusually cheerful; he was once more like his normal self. The seriousness of weeks had gone, and he inspired all of them with his words of faith, hope, and courage.

6. JESUS' FAMILY ARRIVES

^{154:6.1 (1721.1)} It was about eight o'clock on this Sunday morning when five members of Jesus' earth family arrived on the scene in response to the urgent summons of Jude's sister-in-law. Of all his family in the flesh, only one, Ruth, believed wholeheartedly and continuously in the divinity of his mission on earth. Jude and James, and even Joseph, still retained much of their faith in Jesus, but they had permitted pride to interfere with their better judgment and real spiritual inclinations. Mary was likewise torn between love and fear, between mother love and family pride. Though she was

있던 가브리엘의 방문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더 이상 대중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촉구하였다. 그렇게 그를 계속 내버려두면, 그 결과로 예수의 건강이 곧 악화될 것이며,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도 불명예와 수치를 불러오게 할뿐이라고 마리아를 설득시켰다. 그래서 유다의 처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다섯 명 모두 바로 세베대의 집을 향하여 떠났다. 그들은 전날 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바리새인들과 만났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예루살렘의 영도자들과 이야기했으며,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그가 한동안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루트는 그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항상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의 미래의 일을 중지하라고 설득시키는 것에 동의하기를 거절하였다.

세베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였고 그리고 예수께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시키기로 동의하였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두려워했다. 예수가 대중의 눈에 인기가 있는 한, 그의 가족은 그 문제를 그대로 방관할 것이지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과 예루살렘 영도자들이 갑자기 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되는 그들의 낭패한 입장의 수처에 대한 압박을 예리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도록 촉구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그가 그 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한 것을 그들이 잊을 것이라는 것— 만일 그가 오로지 그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키고, 또한 가족에게는 수치를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종교를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오직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루트는 단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빠에게,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설교를 그만 두기 보다는 차라리 그가 죽음을 택하기를 나는 바란다”고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설득시키는 동안, 루트를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의 작별의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은 사람들로 인하여 넘치도록 붐비었다. 드디어 그들은 후문(後門) 쪽 현관에 자리를 잡았고, 귀속 말로 한 사람씩 전달하여, 마침내 시몬 베드로에게 속삭이게 되었고, 그는 이 말을 전하려고 그를 연

harassed by doubts, she could never quite forget the visit of Gabriel ere Jesus was born. The Pharisees had been laboring to persuade Mary that Jesus was beside himself, demented. They urged her to go with her sons and seek to dissuade him from further efforts at public teaching. They assured Mary that soon Jesus' health would break, and that only dishonor and disgrace could come upon the entire family as a result of allowing him to go on. And so, when the word came from Jude's sister-in-law, all five of them started at once for Zebedee's house, having been together at Mary's home, where they had met with the Pharisees the evening before. They had talked with the Jerusalem leaders long into the night, and all were more or less convinced that Jesus was acting strangely, that he had acted strangely for some time. While Ruth could not explain all of his conduct, she insisted that he had always treated his family fairly and refused to agree to the program of trying to dissuade him from further work.

154:6.2 (1721.2) On the way to Zebedee's house they talked these things over and agreed among themselves to try to persuade Jesus to come home with them, for, said Mary: “I know I could influence my son if he would only come home and listen to me.” James and Jude had heard rumors concerning the plans to arrest Jesus and take him to Jerusalem for trial. They also feared for their own safety. As long as Jesus was a popular figure in the public eye, his family allowed matters to drift along, but now that the people of Capernaum and the leaders at Jerusalem had suddenly turned against him, they began keenly to feel the pressure of the supposed disgrace of their embarrassing position.

154:6.3 (1721.3) They had expected to meet Jesus, take him aside, and urge him to go home with them. They had thought to assure him that they would forget his neglect of them — they would forgive and forget — if he would only give up the foolishness of trying to preach a new religion which could bring only trouble to himself and dishonor upon his family. To all of this Ruth would say only: “I will tell my brother that I think he is a man of God, and that I hope he would be willing to die before he would allow these wicked Pharisees to stop his preaching.” Joseph promised to keep Ruth quiet while the others labored with Jesus.

154:6.4 (1721.4) When they reached the Zebedee house, Jesus was in the very midst of delivering his parting address to the disciples. They sought to gain entrance to the house, but it was crowded to overflowing. Finally they established themselves on the back porch and had word passed in to Jesus, from person to person, so that it finally was

설을 중단시키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당신과 말하려고 매우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작별(作別)의 메시지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적들의 도착으로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드러나게 거리가 멀어지고 난 후에, 그녀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실제로 찾아 온 자비를 보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곧 예수가 말을 중단(中斷)하고 그들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그녀는 실제로 생각하였다.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의 사업을 돌보아야만 한다는 점을 그의 이 세상 가족이 이해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경우였다. 그리고는 그가 그 전달을 받은 후 말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러 달려 나오는 대신, 그의 듣기 좋은 음성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를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구하실 것이며, 나의 가족에게도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왕국의 아버지를 믿으라고 전하라.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면 결국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겠느냐?” 그리고 방 안에 모여 있던 그의 제자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였다: “나는 아무런 어머니도 없고 아무런 동생들도 없다. 나의 어머니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의 동생들을 바라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자매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유다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그녀가 마음을 추스르도록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갔다. 한편 예수는 그의 작별 메시지의 끝맺음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 볼 계획이었으나, 메신저가 급히 티베리아스로부터 도착해서 산헤드린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위임장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중이라는 말을 전하였다. 안드레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자, 예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전하였다.

안드레는 다윗이 약 25명의 파수자들을 세베대의 집 주변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갑작스럽게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주(主)는 침묵을 지킨 채 거기에 서계셨으며, 한편으로는 정원에서는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가 충격으로부터 회복 도중에 있었다. 바로 이때에 그 방에 있던 한 여인이 일어나서,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에게 가호가 있기를 비나이다.”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이야기하던 중에 잠시 예수가 몸을 돌려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가호가 있다.”

whispered to him by Simon Peter, who interrupted his talking for the purpose, and who said: “Behol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outside, and they are very anxious to speak with you.” Now it did not occur to his mother how important was the giving of this parting message to his followers, neither did she know that his address was likely to be terminated any moment by the arrival of his apprehenders. She really thought, after so long an apparent estrange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she and his brothers had shown the grace actually to come to him, that Jesus would cease speaking and come to them the moment he received word they were waiting.

154:6.5 (1722.1) It was just another of those instances in which his earth family could not comprehend that he must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And so Mary and his brothers were deeply hurt when, notwithstanding that he paused in his speaking to receive the message, instead of his rushing out to greet them, they heard his musical voice speak with increased volume: “Say to my mother and my brothers that they should have no fear for me. The Father who sent me into the world will not forsake me; neither shall any harm come upon my family. Bid them be of good courage and put their trust in the Father of the kingdom. But, after all,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And stretching forth his hands toward all of his disciples assembled in the room, he said: “I have no mother; I have no brothers. Behold my mother and behold my brethren! For whos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the same is my mother, my brother, and my sister.”

154:6.6 (1722.2) And when Mary heard these words, she collapsed in Jude's arms. They carried her out in the garden to revive her while Jesus spoke the concluding words of his parting message. He would then have gone out to confer with his mother and his brothers, but a messenger arrived in haste from Tiberias bringing word that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were on their way with authority to arrest Jesus and carry him to Jerusalem. Andrew received this message and, interrupting Jesus, told it to him.

154:6.7 (1722.3) Andrew did not recall that David had posted some twenty-five sentinels about the Zebedee house, and that no one could take them by surprise; so he asked Jesus what should be done. The Master stood there in silence while his mother, having heard the words, “I have no mother,” was recovering from the shock in the garden. It was at just this time that a woman in the room stood up and exclaimed,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blessed are the breasts that nursed you.” Jesus turned aside a moment from his conversation with Andrew to answer this woman by saying, “No, rather is the one blessed who hears the word of God and dares to obey it.”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가 그들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예수를 납득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충분히 납득하였다. 예수는 어떻게 인간 존재들이 설교자의 웅변에 좌우되며, 마음이 논리와 이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어떻게 의식이 감정적인 호소에 반응하는지를 아셨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과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알고 계셨다.

자기들이 오해되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동정심 많은 친구와 납득하는 조인자를 가진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람의 적이 자신의 집안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이러한 예언이 그렇게 빨리 그 자신의 체험이 되리라고는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이 세상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그들이 그를 버렸던 것이었다. 나중에 가서, 주(主)의 죽음과 부활 후에 야고보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여했을 때,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초기부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헤쳐 나가면서, 예수는 인간 마음의 한정된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사람의 신분으로 그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그 체험을 겪기로 하였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의 가족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인간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연을 중도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후의 자기들의 첫 만남을 그렇게 대중적인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완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그들을 찾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바로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의 동시발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서둘러 떠나가야 했던 일은 세베대의 집 뒷문에 다윗의 메신저가 도착함으로 증강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의해 빚어진 법적으로 겁먹은 사도들은 이 새로운 도착이 아마도 그들의 체포자를 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앞문을 통하여 대기해 놓은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났다. 이 모든 것이 왜 예수가 집의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급하게 떠나느라 배에 오르는 와중에서도 그는 다윗 세베대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들이 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내가 그들을 보려고 했었다는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나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 뜻을 찾아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구하라고 일러주어라.”

154:6.8 (1722.4) Mary and Jesus' brothers thought that Jesus did not understand them, that he had lost interest in them, little realizing that it was they who failed to understand Jesus. Jesus fully understood how difficult it is for men to break with their past. He knew how human beings are swayed by the preacher's eloquence, and how the conscience responds to emotional appeal as the mind does to logic and reason, but he also knew how far more difficult it is to persuade men to *disown the past*.

154:6.9 (1722.5) It is forever true that all who may think they are misunderstood or not appreciated have in Jesus a sympathizing friend and an understanding counselor. He had warned his apostles that a man's foes may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but he had hardly realized how near this prediction would come to apply to his own experience. Jesus did not forsake his earth family to do his Father's work — they forsook him. Later on, after the Master's death and resurrection, when James became connected with the early Christian movement, he suffered immeasurably as a result of his failure to enjoy this earlier association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154:6.10 (1723.1) In passing through these events, Jesus chose to be guided by the limited knowledge of his human mind. He desired to undergo the experience with his associates as a mere man. And it was in the human mind of Jesus to see his family before he left. He did not wish to stop in the midst of his discourse and thus render their first meeting after so long a separation such a public affair. He had intended to finish his address and then have a visit with them before leaving, but this plan was thwarted by the conspiracy of events which immediately followed.

154:6.11 (1723.2) The haste of their flight was augmented by the arrival of a party of David's messengers at the rear entrance of the Zebedee home. The commotion produced by these men frightened the apostles into thinking that these new arrivals might be their apprehenders, and in fear of immediate arrest, they hastened through the front entrance to the waiting boat. And all of this explains why Jesus did not see his family waiting on the back porch.

154:6.12 (1723.3) But he did say to David Zebedee as he entered the boat in hasty flight: “Tell my mother and my brothers that I appreciate their coming, and that I intended to see them. Admonish them to find no offense in me but rather to seek for a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and for grace and courage to do that will.”

제 7 장. 황급한 도피

그렇게 하여 기원후 29년, 5월 22일,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그의 12사도들과 12명의 전도자들을 데리고,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를 체포하여 성스런 유대 율법을 모독한 죄와 다른 죄명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벳세다로 오고 있는 산헤드린 관리들을 피해 급하게 떠났다. 25명으로 이루어진 이 무리가 노를 저어 갈릴리 해의 동쪽 해안으로 간 것은 이 아름다운 아침에 거의 8시 반이 지났을 때였다.

주(主)의 배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배가 여섯 명의 다윗의 메신저들을 태우고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과의 접촉을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근황과 안전에 대한 보고를 당분간 왕국의 일의 본부가 되어있는 벳세다의 세베대의 집으로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세베대의 집을 다시는 그의 거처로 정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기간을 통하여 주(主)는 진정으로 “그의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정된 거처나 그 비슷한 것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게레사 동네 가까이까지 노를 저어갔다. 거기에서 친구에게 그들의 배를 맡겨놓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주(主) 일생의 이 사건 많은 마지막 해의 방향을 시작하였다. 한동안 그들은 게레사에서 케자리아-빌립보로 가면서 빌립의 권역 안에 머물러있었으며, 거기서부터 페니키아 해변으로 그들의 여정을 잡았다.

이들 두 배들을 바라보며 세베대의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무리들은 동쪽 해안을 향해 호수를 건너 그들의 길을 갔다. 예루살렘 관리들이 서둘러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떠난 지가 이미 오래였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로부터 도피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와 그의 집단이 바타니아를 지나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은 가버나움의 근처에서 그를 찾느라 한 주일 내내 허비하였다.

예수의 가족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일주일의 이야기와 논쟁과 기도를 하며 지냈다. 그들은 혼란과 놀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루이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여 다윗으로부터 그녀의 아버지-오빠가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페니키아 해안 쪽으로 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다.

7. THE HASTY FLIGHT

154:7.1 (1723.4) And so it was on this Sunday morning, the twenty-second of May, in the year A.D. 29, that Jesus, with his twelve apostles and the twelve evangelists, engaged in this hasty flight from the Sanhedrin officers who were on their way to Bethsaida with authority from Herod Antipas to arrest him and take him to Jerusalem for trial on charges of blasphemy and other violations of the sacred laws of the Jews. It was almost half past eight this beautiful morning when this company of twenty-five manned the oars and pulled for the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154:7.2 (1723.5) Following the Master's boat was another and smaller craft, containing six of David's messengers, who had instructions to maintain contact with Jesus and his associates and to see that information of their whereabouts and safety was regularly transmitted to the home of Zebedee in Bethsaida, which had served as headquarters for the work of the kingdom for some time. But Jesus was never again to make his home at the house of Zebedee. From now on, throughout the remainder of his earth life, the Master truly "had not where to lay his head." No more did he have even the semblance of a settled abode.

154:7.3 (1723.6) They rowed over to near the village of Kheresa, put their boat in the custody of friends, and began the wanderings of this eventful last year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For a time they remained in the domains of Philip, going from Kheresa up to Caesarea-Philippi, thence making their way over to the coast of Phoenicia.

154:7.4 (1723.7) The crowd lingered about the home of Zebedee watching these two boats make their way over the lake toward the eastern shore, and they were well started when the Jerusalem officers hurried up and began their search for Jesus. They refused to believe he had escaped them, and while Jesus and his party were journeying northward through Batanea, the Pharisees and their assistants spent almost a full week vainly searching for him in the neighborhood of Capernaum.

154:7.5 (1724.1) Jesus' family returned to their home in Capernaum and spent almost a week in talking, debating, and praying. They were filled with confusion and consternation. They enjoyed no peace of mind until Thursday afternoon, when Ruth returned from a visit to the Zebedee house, where she learned from David that her father-brother was safe and in good health and making his way toward the Phoenician coast.

제 155 편 갈릴리 북부지방을 지나서 도피하다

⇨ 154

유랜시아 책

15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5 편 갈릴리 북부지방을 지나서 도
피하다

섹션

소개

- 제 1 장.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는가?
제 2 장. 코라진의 전도자들
제 3 장. 케자리아-빌립보 지방에서
제 4 장. 페니키아로 가는 길
제 5 장. 진정한 종교에 대한 설교
제 6 장. 종교에 관한 두 번째 설교

PAPER 155

FLEEING THROUGH NORTHER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Why Do the Heathen Rage?
2. The Evangelists in Chorazin
3. At Caesarea-Philippi
4. On the Way to Phoenicia
5. The Discourse on True Religion
6. The Second Discourse on Religion

소개

이 사건 많은 일요일에 게레사 근처에 도착한 직후, 예수와 24명의 제자들은 북쪽으로 좀 더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벳세다-줄리아스지역의 남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전에 이곳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영지를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主)는 제자들을 주위에 불러 바타니와 북부 갈릴리를 거쳐 페니키아 해변에 이르는 그들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여행에 관하여 그들과 상의하였다.

INTRODUCTION

155:0.1 (1725.1) SOON after landing near Kheresa on this eventful Sunday, Jesus and the twenty-four went a little way to the north, where they spent the night in a beautiful park south of Bethsaida-Julias. They were familiar with this camping place, having stopped there in days gone by. Before retiring for the night, the Master called his followers around him and discussed with them the plans for their projected tour through Batanea and northern Galilee to the Phoenician coast.

제 1 장.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는가?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는 시편 기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기억해야한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주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배척하며, 자비심을 없애고 사랑의 계울을 던져 버리자 한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너희는 이것이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희는 시편 기자의 나머지

1. WHY DO THE HEATHEN RAGE?

155:1.1 (1725.2) Said Jesus: “You should all recall how the Psalmist spoke of these times, saying, ‘Why do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set themselves, and the rulers of the people take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Let us break the bonds of mercy asunder and let us cast away the cords of love.’

155:1.2 (1725.3) “Today you see this fulfilled before your eyes. But you shall not see the remainder of

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아들과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서는 틀린 관념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나의 왕국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고, 자비 안에서 선포되고, 사심-없는 봉사로서 확립된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앉아서서 이교도들을 비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격노하지 않으신다. 아들이 소위 이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실체 안에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의 형제들)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사실이다. 나는 이 이교도들을 자비와 사랑의 손을 벌려 받아들일 것이다. 승리의 아들이 이교도들을 쇠막대기로 쳐서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랑 넘치는-친절함이 소위 이교도라고 불리는 이들 위에 내릴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고 훈계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신성한 아들관계라는 고귀한 특권을 갖도록 명령한다; 시편 기자는 너희들에게 떨며 기쁨을 향유하라고 명령한다; 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갖고 기쁨을 향유하라고 명령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그의 분노에 불이 붙을 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이제까지 함께 생활해 온 너희는 분노와 노여움이 사람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훈계의 말을 완결하면서 '이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는 진리의 빛을 어렵게 보았다.

예수는 스물네 명에게 계속 가르치시며 말했다: "이교도들이 우리에게 격노할 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야가 작고 좁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열광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감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분투하고 있다.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고백한 너희는 대체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에서 너무나 동요되고 그리고 불명확하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쳐들어간다; 너희는 너무나 많은 상습적인 염원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자 한다면, 어찌서 너희는 이교도들이 그들이 포위 공격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맹공으로 왕국을 차지하지 않는가? 만일 너희의 봉사가 대체로 과거를 뉘우치고, 현재에 와서는 애처롭게 보채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헛되이 희망하고 있는 태도로 이루어질 때는, 너희는 도저히 왕국에서의 가치가 없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쓸모없는 염원으로 시들어가는가?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소용없는 염원을 끝내라 그리고 왕국의 설립에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모든 일을 하는 중에, 일방적이라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 우리의 과업을 모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

the Psalmist's prophecy fulfilled, for he entertained erroneous ideas about the Son of Man and his mission on earth. My kingdom is founded on love, proclaimed in mercy, and established by unselfish service. My Father does not sit in heaven laughing in derision at the heathen. He is not wrathful in his great displeasure. True is the promise that the Son shall have these so-called heathen (in reality his ignorant and untaught brethren) for an inheritance. And I will receive these gentiles with open arms of mercy and affection. All this loving-kindness shall be shown the so-called heathen, notwithstanding the unfortunate declaration of the record which intimates that the triumphant Son 'sha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and dash them to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The Psalmist exhorted you to 'serve the Lord with fear' — I bid you enter into the exalted privileges of divine sonship by faith; he commands you to rejoice with trembling; I bid you rejoice with assurance. He says,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perish when his wrath is kindled.' But you who have lived with me well know that anger and wrath are not a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But the Psalmist did glimpse the true light when, in finishing this exhortation, he said: 'Blessed are they who put their trust in this Son.'"

155:1.3 (1725.4)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twenty-four, saying: "The heathen are not without excuse when they rage at us. Because their outlook is small and narrow, they are able to concentrate their energies enthusiastically. Their goal is near and more or less visible; wherefore do they strive with valiant and effective execution. You who have professed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are altogether too vacillating and indefinite in your teaching conduct. The heathen strike directly for their objectives; you are guilty of too much chronic yearning. If you desire to enter the kingdom, why do you not take it by spiritual assault even as the heathen take a city they lay siege to? You are hardly worthy of the kingdom when your service consists so largely in an attitude of regretting the past, whining over the present, and vainly hoping for the future. Why do the heathen rage? Because they know not the truth. Why do you languish in futile yearning? Because you obey not the truth. Cease your useless yearning and go forth bravely doing that which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155:1.4 (1726.1) "In all that you do, become not one-sided and overspecialized. The Pharisees who seek our destruction verily think they are doing

들도 하느님의 봉사예배를 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에 너무 얽매어서 편견으로 눈이 멀었으며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리스인들을 보라, 유대인들이 과학이 없이 종교를 가진 반면에, 그들은 종교가 없이 과학을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도되어서 진리에서의 좁고도 혼동되어진 집대성-해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에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진리와-조화-협동되는 것—전향되어짐—뿐이다.

“나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강조 한다: 만일 너희가 진리의 조화-협동으로 너희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정의(正義)의 온전함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다면, 너희의 동료들도 너희가 갖게 된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너희를 좇을 것이다. 진리의 탐구자들이 너희를 찾는 정도가 너희가 소유한 진리 자질, 올바름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에게 전할 너희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가 가야만 하는 그 범위가, 어떤 의미로는, 온전하거나 혹은 의로운 일생, 진리와-조화-협동되는 일생을 너희가 살지 못하는 것의 척도이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에게 밤 인사를 하고 잠을 자러 가기 전에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 2 장. 코라진의 전도자들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수는 베드로에게 12명의 전도자들을 데리고 코라진으로 갈 것을 명하고, 그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케사리아-빌립보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지나 다마섹-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케사리아-빌립보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 곳에서 2주간 머물면서 가르쳤다. 예수의 일행이 도착한 때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였다.

한편 베드로와 전도자들은 코라진에 2주간 머물렀고, 그들은 그 곳에서 숫자는 적지만 진지한 신도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종자들을 많이 얻지는 못하였다. 갈릴리 전 지역의 어떠한 도시에서도 코라진만큼 왕국을 갈망하는 혼이 거의 없었던 곳은 없었다.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12명의 전도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보다는 하늘왕국의 영적 진리를 더욱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코라진에서의 2주는 그때까지 겪어 온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생산적이었던다는 점에서 12명의 전도자들에게는 하나의 진정한 역경의 시련이 되었다. 따라서 왕국을 향하는 혼들을 얻는 만족을 빼앗기자, 전도자들 각자는 좀 더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그 자신의 혼의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일생의 영적 길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듯 해 보이자, 6월 7일 화요일에 베드로가 그

God's service. They have become so narrowed by tradition that they are blinded by prejudice and hardened by fear. Consider the Greeks, who have a science without religion, while the Jews have a religion without science. And when men become thus misled into accepting a narrow and confused disintegration of truth, their only hope of salvation is to become truth-co-ordinated — converted.

155:1.5 (1726.2) “Let me emphatically state this eternal truth: If you, by truth co-ordination, learn to exemplify in your lives this beautiful wholeness of righteousness, your fellow men will then seek after you that they may gain what you have so acquired. The measure wherewith truth seekers are drawn to you represents the measure of your truth endowment, your righteousness. The extent to which you have to go with your message to the people is, in a way, the measure of your failure to live the whole or righteous life, the truth-co-ordinated life.”

155:1.6 (1726.3) And many other things the Master taught his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before they bade him good night and sought rest upon their pillows.

2. THE EVANGELISTS IN CHORAZIN

155:2.1 (1726.4) On Monday morning, May 23, Jesus directed Peter to go over to Chorazin with the twelve evangelists while he, with the eleven, departed for Caesarea-Philippi, going by way of the Jordan to the Damascus-Capernaum road, thence northeast to the junction with the road to Caesarea-Philippi, and then on into that city, where they tarried and taught for two weeks. They arrived during the afternoon of Tuesday, May 24.

155:2.2 (1726.5) Peter and the evangelists sojourned in Chorazin for two weeks,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a small but earnest company of believers. But they were not able to win many new converts. No city of all Galilee yielded so few souls for the kingdom as Chorazin. In accordance with Peter's instructions the twelve evangelists had less to say about healing — things physical — while they preached and taught with increased vigor the spiritual truths of the heavenly kingdom. These two weeks at Chorazin constituted a veritable baptism of adversity for the twelve evangelists in that it was the most difficult and unproductive period in their careers up to this time. Being thus deprived of the satisfaction of winning souls for the kingdom, each of them the more earnestly and honestly took stock of his own soul and its progress in the spiritual paths of the new life.

155:2.3 (1726.6) When it appeared that no more people were minded to seek entrance into the

의 연관-동료들을 모두 불러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케사리아-빌립보 지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요일 정오경에 그곳에 도착해서 온밤을 코라진 비신자들 사이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느라 보냈다. 이날 밤의 토론 중에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하여 좀 더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에게 일생에서의 명백한 실패의 의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제 3 장. 케사리아-빌립보 지방에서

비록 예수가 케사리아-빌립보 지방 근처에 머무르는 2주 동안 아무런 대중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음에도, 사도들이 그 곳에서 조용하게 수많은 밤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은 주(主)와 이야기하려고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 방문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도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매일같이 예수는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 설교하는 자신들의 작업이 이제 새로운 위상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성한 자녀 됨을 수용함으로써 얻는 영적 기쁨을 실현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케사리아-빌립보에서의 체류기간은 11명의 사도들에 대한 실제 시험기간으로써 그 2주 동안은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했으며 베드로의 열정적인 개인성이 가져다주었던 간헐적인 자극을 그리워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일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어려운 모험이었다. 2주 동안 개종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가졌던 주(主)와의 대화를 통하여 매우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하나의 교리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리가 영적 안내와 진보의 이정표로서 봉사하는 대신 자아-정의로운 배타성의 경계선으로 형성될 때, 그러한 가르침들은 그들의 창조적이고 생명-수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궁극에는 단지 보존제와 화석(化石)화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인간의 개인성들을 시간과 영원 안에서의 그들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많은 혼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장 잘 인도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심-없는 봉사에 관한 예수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가 가미되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케사리아 체류기간 중 가장 큰 교훈 중의 하

kingdom, Peter, on Tuesday, June 7,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departed for Caesarea-Philippi to join Jesus and the apostles. They arrived about noontime on Wednesday and spent the entire evening in rehearsing their experiences among the unbelievers of Chorazin. During the discussions of this evening Jesus made further reference to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taught them much about the meaning of the apparent failure of life undertakings.

3. AT CAESAREA-PHILIPPI

155:3.1 (1727.1) Although Jesus did no public work during this two weeks' sojourn near Caesarea-Philippi, the apostles held numerous quiet evening meetings in the city, and many of the believers came out to the camp to talk with the Master. Very few were added to the group of believers as a result of this visit. Jesus talked with the apostles each day, and they more clearly discerned that a new phase of the work of preaching the kingdom of heaven was now beginning. They were commencing to comprehend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meat and drink but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ual joy of the acceptance of divine sonship.”

155:3.2 (1727.2) The sojourn at Caesarea-Philippi was a real test to the eleven apostles; it was a difficult two weeks for them to live through. They were well-nigh depressed, and they missed the periodic stimulation of Peter's enthusiastic personality. In these times it was truly a great and testing adventure to believe in Jesus and go forth to follow after him. Though they made few converts during these two weeks, they did learn much that was highly profitable from their daily conferences with the Master.

155:3.3 (1727.3) The apostles learned that the Jews were spiritually stagnant and dying because they had crystallized truth into a creed; that when truth becomes formulated as a boundary line of self-righteous exclusiveness instead of serving as signposts of spiritual guidance and progress, such teachings lose their creative and life-giving power and ultimately become merely preservative and fossilizing.

155:3.4 (1727.4) Increasingly they learned from Jesus to look upon human personalities in terms of their possibilities in time and in eternity. They learned that many souls can best be led to love the unseen God by being first taught to love their brethren whom they can see. And it was in this connection that new meaning became attached to the Master's pronouncement concerning unselfish service for one's fellows: “Inasmuch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my brethren, you did it to me.”

155:3.5 (1727.5) One of the great lessons of this

나는 신성하지 않은 물건들이나 일반적인 관념들, 또는 일상의 사건들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심각한 위험성이 따르는, 종교적 전통의 기원에 관한 것들이었다. 어느 한 회합에서 그들은 참된 종교란 자신의 가장 높고 가장 참된 신념에 대해 사람의 가슴에서 느끼는 충성이라는 가르침으로 솟아올라 창발 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는데, 그것은 만일 종교적 열망이 단지 물질적인 것뿐이라면, 자연에 대하여 증가하는 지식은, 사물에 대하여 초자연적 기원이라고 상상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 그들의 종교가 영적인 것이라면, 물질적 과학의 발전이 결코 영원한 실체와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종교의 동기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일 때, 그것은 모든 일생을 더욱 더 값지게 만들어주며, 삶에 고귀한 목적을 부여하고, 초월적인 가치들로 삶을 존귀하게 하며, 훌륭한 동기로 삶에 영감을 주며, 항상 숭고하고 그리고 북돋아주는 희망으로 인간의 혼에 안식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종교는 실존의 긴장상태를 줄여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과 그리고 사심-없는 봉사를 위하여 신앙과 용기를 내어놓는다. 신앙은 영적 활력과 의로운 풍성한 결실을 촉진한다.

예수는 반복해서 사도들에게 어떠한 문명도 그 종교의 쇠퇴를 상실했을 경우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12명에게 종교적 체험 대신 종교적 상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일에 결코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의 이 세상의 전체 일생은 종교에서의 얼어붙은 형태를 녹여서 깨우친 아들관계의 물처럼 흐르는 해방으로 만드는 일에만 연결같이 헌신하셨다.

제 4 장. 페니키아로 가는 길

6월 9일 목요일 아침, 벳세다에 있는 다윗의 메신저들에 의하여 왕국의 사업의 진전에 관한 소식을 받은 후, 진리의 선생들인 이 25명의 집단은 페니키아 연안 지방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케자리아-빌립보 지방을 떠났다. 그들은 늪지대 지역을 돌아, 롯츠를 거쳐, 막달라-산 레바논의 오솔길과 만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시돈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렀으며, 금요일 오후에 그곳에 도착하였다.

롯츠 근처 바위 그늘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동안 예수는 사도들이 그와 동행했던 여러 해를 통하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였다. 그들이 빵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영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들을

sojourn at Caesarea had to do with the origin of religious traditions, with the grave danger of allowing a sense of sacredness to become attached to nonsacred things, common ideas, or everyday events. From one conference they emerged with the teaching that true religion was man's heartfelt loyalty to his highest and truest convictions.

155:3.6 (1727.6) Jesus warned his believers that, if their religious longings were only material, increasing knowledge of nature would, by progressive displacement of the supposed supernatural origin of things, ultimately deprive them of their faith in God. But that, if their religion were spiritual, never could the progress of physical science disturb their faith in eternal realities and divine values.

155:3.7 (1727.7) They learned that, when religion is wholly spiritual in motive, it makes all life more worth while, filling it with high purposes, dignifying it with transcendent values, inspiring it with superb motives, all the while comforting the human soul with a sublime and sustaining hope. True religion is designed to lessen the strain of existence; it releases faith and courage for daily living and unselfish serving. Faith promotes spiritual vitality and righteous fruitfulness.

155:3.8 (1727.8) Jesus repeatedly taught his apostles that no civilization could long survive the loss of the best in its religion. And he never grew weary of pointing out to the twelve the great danger of accepting religious symbols and ceremonies in the place of religious experience. His whole earth life was consistently devoted to the mission of thawing out the frozen forms of religion into the liquid liberties of enlightened sonship.

4. ON THE WAY TO PHOENICIA

155:4.1 (1728.1) On Thursday morning, June 9, after receiving word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brought by the messengers of David from Bethsaida, this group of twenty-five teachers of truth left Caesarea-Philippi to begin their journey to the Phoenician coast. They passed around the marsh country, by way of Luz, to the point of junction with the Magdala-Mount Lebanon trail road, thence to the crossing with the road leading to Sidon, arriving there Friday afternoon.

155:4.2 (1728.2) While pausing for lunch under the shadow of an overhanging ledge of rock, near Luz, Jesus delivered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dresses which his apostles ever listened to throughout all their years of association with him. No sooner had they seated themselves to break bread than Simon Peter asked Jesus: “Master,

후원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적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갑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진리의 적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도마가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적들의 종교에 어떤 그릇된 점이 있는지 실제로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에서 실제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다양함에 처해 있는지요?”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가 베드로의 질문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유대인들의 통치자들과 공개적인 충돌을 피한 것에 대한 나의 이유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택한다면 너희 모두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너희가 점심을 마치고나면 그 답변을 해 주겠다.”

since the Father in heaven knows all things, and since his spirit is our suppo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why is it that we flee from the threats of our enemies? Why do we refuse to confront the foes of truth?” But before Jesus had begun to answer Peter’s question, Thomas broke in, asking: “Master, I should really like to know just what is wrong with the religion of our enemies at Jerusalem. What is the real difference between their religion and ours? Why is it we are at such diversity of belief when we all profess to serve the same God?” And when Thomas had finished, Jesus said: “While I would not ignore Peter’s question, knowing full well how easy it would be to misunderstand my reasons for avoiding an open clash with the rulers of the Jews at just this time, still it will prove more helpful to all of you if I choose rather to answer Thomas’s question. And that I will proceed to do when you have finished your lunch.”

제 5 장. 진정한 종교에 대한 설교

5. THE DISCOURSE ON TRUE RELIGION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종교에 대한 강연은 현대 용어로 요약하여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155:5.1 (1728.3) This memorable discourse on religion,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gave expression to the following truths:

이 세상의 종교는 이중적인 기원—자연적인 것과 계시적인 것—을 갖는데, 어느 한 시기에서든지 그리고 한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든지 거기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종교적 현신의 형태들이 발견되도록 되어있다. 이 세 가지 종교적 현시활동은 다음과 같다:

155:5.2 (1728.4) While the religions of the world have a double origin — natural and revelatory — at any one time and among any one people there are to be found three distinct forms of religious devotion. And these three manifestations of the religious urge are:

1. 원시 종교.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두려워하고 우월한 기세를 경배하는 반(半)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으로서, 주로 물리적 자연의 종교, 두려움의 종교이다.

155:5.3 (1728.5) 1. *Primitive religion.* The seminatural and instinctive urge to fear mysterious energies and worship superior forces, chiefly a religion of the physical nature, the religion of fear.

2. 문명의 종교. 발전되는 종교적 개념들과 문명화된 종족들의 실천 관행—마음의 종교—, 확립된 종교적 전통의 권한을 가진 지적인 신학.

155:5.4 (1728.6) 2. *The religion of civilization.* The advancing religious concepts and practices of the civilizing races — the religion of the mind — the intellectual theology of the authority of established religious tradition.

3. 진정한 종교-계시종교. 초자연적인 가치들, 영원한 실체에 대한 부분적인 통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 성격인 선(善)과 아름다움(美)을 열핏 보는 것—인간의 체험으로 실증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영의 종교.

155:5.5 (1728.7) 3. *True religion — the religion of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supernatural values, a partial insight into eternal realities, a glimpse of the goodness and beauty of the infinite character of the Father in heaven — the religion of the spirit as demonstrated in human experience.

주는 물리적 감각의 종교와 그리고 자연스런 사람의 미신적인 두려움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원시적 경배 형태의 많은 것들이 좀더 지적인 인류 종족의 종교 형태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 예수는 마음의 종교와 영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교회의 권한에 의해 지탱되는 반면에 후자는 전적으로 인간의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155:5.6 (1728.1) The religion of the physical senses and the superstitious fears of natural man, the Master refused to belittle, though he deplored the fact that so much of this primitive form of worship should persist in the religious forms of the more intelligent races of mankind. Jesus made it clear that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eligion of the mind and the religion of the spirit is that, while the former is upheld by ecclesiastical authority, the

그런 다음 주께서 이 가르침의 시간을 통하여 다음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하였다.

종족들이 고도로 지적이 되고 더욱 충분히 개문명화될 때까지는, 원시적이고 퇴보적인 사람들의 진화해가는 종교적 실천 관행들의 그 어떤 특징이 되는 그러한 유치하고도 미신적 의식(儀式)들 중 많은 것이 지속할 것이다. 인간 종족이 영적 체험의 실체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좀더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숫자의 남자와 여자들이, 진보하는 인간체험의 엄중한 실체(實體)들과 맞잡아 겨루는 그 신앙 모험에서 마음과 영의 활발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영(靈)의 종교와 대조되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저들 권위의 종교에 계속하여 개인적인 선회를 나타낼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의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영적 본성의 열망에 대한 만족을 찾는 사람의 충동을 위한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안정되고, 결정화되고 그리고 확립된 권위의 종교들은,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불확실성으로 고통 받을 때 이성을 잃을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의 혼이 도망칠 수도 있도록 그런 준비된 피난처를 잘 제공한다. 그러한 종교는, 그 만족과 확신을 얻는 데 지불되어야 할 대가(代價)로서, 단지 수동적이고 순전히 지적인 동의만을 신자들에게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랫동안, 그러한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망설이는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기를 선호하는 개별존재들이 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권위종교에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내 던지면서, 그들은 개인성의 주권을 양보하고, 자아-존중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모든 가능한 인간 체험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려고 기꺼이 나설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가능한 인간 체험, 곧 스스로 직접적인 진리의 추구, 지적 발견이라는 모험에 직면하며 느끼는 흥분, 개인적 종교 체험의 실체를 탐사하려는 결심,—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모험, 곧 모든 인간 실존의 최극의 모험에서 정직하게 승리함으로써, 지적 의심을 이겨내는 영적 신앙의 승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개인적 정복을 체험하는 최상의 만족, 이 모든 것과 여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자신들의 종교적 위로를 확보하려고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영의 종교는 노력, 투쟁, 갈등, 신앙, 결정, 사랑, 충성, 그리고 발전을 의미한다. 마음의 종교—곧, 권위의 신학은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전래 신앙은 두려움이 많고 건성으로 믿는 혼에게 안전한 피난처이며 쉬운 길로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진보하는 인간 마음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진화하는 인간 혼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처럼, 영적 실체들의 아버지의 해안을 찾아나서는, 미개척된 진리

latter is wholly based on human experience.

155:5.7 (1729.2) And then the Master, in his hour of teaching, went on to make clear these truths:

155:5.8 (1729.3) Until the races become highly intelligent and more fully civilized, there will persist many of those childlike and superstitious ceremonies which are so characteristic of the evolutionary religious practices of primitive and backward peoples. Until the human race progresses to the level of a higher and more general recognition of the realities of spiritual experience, large numbers of men and women will continue to show a personal preference for those religions of authority which require only intellectual assent, in contrast to the religion of the spirit, which entails active participation of mind and soul in the faith adventure of grappling with the rigorous realities of progressive human experience.

155:5.9 (1729.4) The acceptance of the traditional religions of authority presents the easy way out for man's urge to seek satisfaction for the longings of his spiritual nature. The settled, crystallized, and established religions of authority afford a ready refuge to which the distracted and distraught soul of man may flee when harassed by fear and tormented by uncertainty. Such a religion requires of its devotees, as the price to be paid for its satisfactions and assurances, only a passive and purely intellectual assent.

155:5.10 (1729.5) And for a long time there will live on earth those timid, fearful, and hesitant individuals who will prefer thus to secure their religious consolations, even though, in so casting their lot with the religions of authority, they compromise the sovereignty of personality, debase the dignity of self-respect, and utterly surrende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at most thrilling and inspiring of all possible human experiences: the personal quest for truth, the exhilaration of facing the perils of intellectual discovery, the determination to explore the realities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the supreme satisfaction of experiencing the personal triumph of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victory of spiritual faith over intellectual doubt as it is honestly won in the supreme adventure of all human existence — man seeking God, for himself and as himself, and finding him.

155:5.11 (1729.6) The religion of the spirit means effort, struggle, conflict, faith, determination, love, loyalty, and progress. The religion of the mind — the theology of authority — requires little or none of these exertions from its formal believers. Tradition is a safe refuge and an easy path for those fearful and halfhearted souls who instinctively shun the spirit struggles and mental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those faith voyages of daring

의 높은 바다위에서 용기 있게 모험하는 그런 신앙의 항해와 관련된 정신적 망설임과 영적 투쟁을 피하려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영도자들이 그들의 전통적 스승들과 다른 시대의 예언자들이 전해 준 다양한 교리들을 하나의 확립된 지적 신념체계, 권위의 종교로 공식화시켰다. 그러한 종교들은 대개 마음에 호소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종교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할 시점에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새로운 종교—그 단어의 지금-현재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닌 종교, 사람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게 주로 호소를 드리는 종교; 더 높은 이 영적 교제의 진리 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믿는 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 안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받아들이는 열매에서 그 권위가 이끌어내어지는 종교—를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24명의 제자들을 하나씩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서 예수는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들 중의 어느 누구라도, 하나의 삶에 있는 살아있는 실체들의 아름다움들인 네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영원한 진리와 최극의 장엄함을 몸소 체험하는 그 만족을 네가 실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더욱 좋은 길을 선언하는 사명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움들과 박해로 고통 받기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확립되어진 그리고 화석화(化石化)된 종교를 따르는 이 쉬운 길을 선호할 것인가? 너희는 두려움에 차있고 심약하여 쉽게 얻고자 하느냐?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진리의 하느님의 손에 너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두려우냐? 그분의 자녀들인 너희가 아버지를 좀처럼 믿을 수 없느냐? 너희는 전통적 권위종교의 지적 안정성과 확실성이라는 쉬운 길로 되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영의 종교의 새로운 진리,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불확실하고 힘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가겠느냐?”

24명의 사도들은 예수가 일찍이 하신 매우 드문 감정적인 호소 중의 하나인 이 말에, 그들의 연합되고 충성된 답변을 표하려고 시도하면서 다리를 펴며 일어섰지만, 그러나 예수는 손을 들어 이를 제지하고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들끼리 가서 각자가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 질문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대답을 찾아내고, 그러한 참되고 진지한 혼의 태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 대답을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 그의 무한한 사랑의 생명이 우리가 선포하는 종교의 바로 그 영이 되는, 그 분께 자유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말씀드려라,”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갔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영은

adventure out upon the high seas of unexplored truth in search for the farther shores of spiritual realities as they may be discovered by the progressive human mind and experienced by the evolving human soul.

155:5.12 (1729.7) And Jesus went on to say: “At Jerusalem the religious leaders have formulated the various doctrines of their traditional teachers and the prophets of other days into an established system of intellectual beliefs, a religion of authority. The appeal of all such religions is largely to the mind. And now are we about to enter upon a deadly conflict with such a religion since we will so shortly begin the bold proclamation of a new religion — a religion which is not a religion in the present-day meaning of that word, a religion that makes its chief appeal to the divine spirit of my Father which resides in the mind of man; a religion which shall derive its authority from the fruits of its acceptance that will so certainly appear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all who really and truly become believers in the truths of this higher spiritual communion.”

155:5.13 (1730.1) Pointing out each of the twenty-four and calling them by name, Jesus said: “And now, which one of you would prefer to take this easy path of conformity to an established and fossilized religion, as defended by the Pharisees at Jerusalem, rather than to suffer the difficulties and persecutions attendant upon the mission of proclaiming a better way of salvation to men while you realize the satisfaction of discovering for yourselves the beauties of the realities of a living and personal experience in the eternal truths and supreme grandeur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you fearful, soft, and ease-seeking? Are you afraid to trust your future in the hands of the God of truth, whose sons you are? Are you distrustful of the Father, whose children you are? Will you go back to the easy path of the certainty and intellectual settledness of the religion of traditional authority, or will you gird yourselves to go forward with me into that uncertain and troublous future of proclaiming the new truths of the religion of the spirit,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hearts of men?”

155:5.14 (1730.2) All twenty-four of his hearers rose to their feet, intending to signify their united and loyal response to this, one of the few emotional appeals which Jesus ever made to them, but he raised his hand and stopped them, saying: “Go now apart by yourselves, each man alone with the Father, and there find the unemotional answer to my question, and having found such a true and sincere attitude of soul, speak that answer freely and boldly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whose infinite life of love is the very spirit of the religion we proclaim.”

155:5.15 (1730.3)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went apart by themselves for a short time. Their spirits

드높아졌고, 그들의 마음은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의 감정은 힘차게 북돋아졌다. 그러나 안드레가 그들을 모두 한군데로 모았을 때, 예수는 단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페니키아로 가서 그 곳에 한 동안 머물 것이며, 너희 모두는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과 몸의 감정들을, 마음의 더욱 높은 충성과 그리고 더욱 만족스런 영의 체험으로 변환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길을 나설 때, 24명은 말이 없었으나, 곧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그 날 오후 세 시쯤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멈추었고 베드로가 예수께 가서 말하였다: “주(主)여, 우리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에 관하여 좀더 저희들에게 말해주시기 간청합니다.”

제 6 장. 종교에 관한 두 번째 설교

그래서 그들이 언덕의 그늘 아래에서 멈추어 쉬는 동안, 예수는 영의 종교에 관해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안전을 갈구하며 순종을 선호하는 자들, 마음의 종교에 만족하며 머무르기를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빠져 나왔다. 너희는 권위주의적 확실성에 대한 너희의 감정을,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영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너희는 제도적 종교의 엄격한 속박에 대담하게 맞서 싸워 왔으며, 현재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기록의 권위를 과감히 거부해왔다. 우리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모세,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였다. 그러나 이 옛 예언자들이 말을 끝낸 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한 세대에는 주고 다른 세대에는 거두어들이므로써 인류나 세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온통 인간의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또한 상상의 영감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신전을 통해 나오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식별하는데 실패가 없도록 하라.

나는 너희가 거듭나기를, 영으로 태어나기를 권하였다. 나는 너희를 권위의 어둠과 전통이라는 무기력 상태에서 불러내어 인간 혼이 이루기 가능한 가장 위대한 발견—너희 자신에게로, 너희 자신 안에서, 그리고 너희 자신의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그리고 너희 각자의 개인적 체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실로서 행한다는 최상의 체험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초월적인 빛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통의 권위로부터 하느님을 아는 체험으로; 그리하여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물려받은 민족적 신앙으로부터 실제 체험

were uplifted, their minds were inspired, and their emotions mightily stirred by what Jesus had said. But when Andrew called them together, the Master said only: “Let us resume our journey. We go into Phoenicia to tarry for a season, and all of you should pray the Father to transform your emotions of mind and body into the higher loyalties of mind and the more satisfying experiences of the spirit.”

155:5.16 (1730.4) As they journeyed on down the road, the twenty-four were silent, but presently they began to talk one with another, and by three o'clock that afternoon they could not go farther; they came to a halt, and Peter, going up to Jesus, said: “Master, you have spoken to us the words of life and truth. We would hear more; we beseech you to speak to us further concerning these matters.”

6. THE SECOND DISCOURSE ON RELIGION

155:6.1 (1730.5) And so, while they paused in the shade of the hillside, Jesus continued to teach them regarding the religion of the spirit, in substance saying:

155:6.2 (1730.6) You have come out from among those of your fellows who choose to remain satisfied with a religion of mind, who crave security and prefer conformity. You have elected to exchange your feelings of authoritative certainty for the assurances of the spirit of adventurous and progressive faith. You have dared to protest against the grueling bondage of institutional religion and to reject the authority of the traditions of record which are now regarded as the word of God. Our Father did indeed speak through Moses, Elijah, Isaiah, Amos, and Hosea, but he did not cease to minister words of truth to the world when these prophets of old made an end of their utterances. My Father is no respecter of races or generations in that the word of truth is vouchsafed one age and withheld from another. Commit not the folly of calling that divine which is wholly human, and fail not to discern the words of truth which come not through the traditional oracles of supposed inspiration.

155:6.3 (1731.1) I have called upon you to be born again, to be born of the spirit. I have called you out of the darkness of authority and the lethargy of tradition into the transcendent light of the realization of the possibility of making for yourselves the greatest discovery possible for the human soul to make — the supernal experience of finding God for yourself, in yourself, and of yourself, and of doing all this as a fact in your own personal experience. And so may you pass from death to life, from the authority of tradition to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thus will you pass from darkness to light, from a racial faith inherited

에 의해 성취된 개인적 신앙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신학으로부터 영원한 자질로 너희 혼속에 세워 질 진정한 영의 종교로 진보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종교는 전통적 권위의 단순한 지적 믿음에서 하느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과 아버지의 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마음의 종교는 너희를 희망도 없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지만, 영의 종교는 진보적인 계시를 이루고 있으며, 영적 이상(理想)들과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 더 높고 고귀한 성과를 언제나 이루도록 한다.

권위의 종교는 확정된 안전의 현재의 감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한 대가(代價)로 너희는 너희의 영적 자유와 종교적 해방감을 상실한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대가로, 영적으로 모순되고, 성스럽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는 사실들을 믿는 것에 스스로를 강요하여 붙들어 매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낱아빠진 체계의 종교형태와 예식에 굴복함으로써 자비, 공의, 진리에 대한 너희들 자신의 감각이 유린되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영의 종교는 영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던지 진리를 따르도록 언제까지나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둔다. 그리고 이 영이 아마도 다른 세대들은 듣기를 거부해왔던 무엇인가를 이 세대에 나누어줄지도 모른다.-누가 심판할 수 있겠는가?

굶주린 혼들을 어둡고 머나 먼 과거로 끌고 가 그 곳에 방치하는 거짓 종교 선생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지어다! 또한 온갖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섬뜩하게 놀라는 운명에 처해진 불행한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새로운 진리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찢찢메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 머문 자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한 예언자는 권위 신학의 단순한 지적 신봉자가 아니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던 인간은 하느님을 발견했었으며, 그는 단지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옛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실천 관행을 버리고, 대신에 지고자의 살아있는 예언자와 다가오는 왕국의 영적 영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과거에 하느님을-알았던 영도자들을 명예롭게 받드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찌하여 너희는 인간 실존의 최극 체험-너희 자신에게 하느님을 찾아주고 너희 각자의 혼 안에서 그를 알게 되는 것-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인류의 모든 종족은 인간 실존에 대한 저마다 각각의 정신적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종교에서는 이들 다양한 각 종족의 시각에 대하여 그것이 언제까지나 진실임을 저마다 이어가야만 한다. 권위의 종교는 결코 통일을 가져올 수

to a personal faith achieved by actual experience; and thereby will you progress from a theology of mind handed down by your ancestors to a true religion of spirit which shall be built up in your souls as an eternal endowment.

155:6.4 (1731.2) Your religion shall change from the mere intellectual belief in traditional authority to the actual experience of that living faith which is able to grasp the reality of God and all that relates to the divine spirit of the Father. The religion of the mind ties you hopelessly to the past; the religion of the spirit consists in progressive revelation and ever beckons you on toward higher and holier achievements in spiritual ideals and eternal realities.

155:6.5 (1731.3) While the religion of authority may impart a present feeling of settled security, you pay for such a transient satisfaction the price of the loss of your spiritual freedom and religious liberty. My Father does not require of you as the price of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that you should force yourself to subscribe to a belief in things which are spiritually repugnant, unholy, and untruthful. It is not required of you that your own sense of mercy, justice, and truth should be outraged by submission to an outworn system of religious forms and ceremonies. The religion of the spirit leaves you forever free to follow the truth wherever the leadings of the spirit may take you. And who can judge — perhaps this spirit may have something to impart to this generation which other generations have refused to hear?

155:6.6 (1731.4) Shame on those false religious teachers who would drag hungry souls back into the dim and distant past and there leave them! And so are these unfortunate persons doomed to become frightened by every new discovery, while they are discomfited by every new revelation of truth. The prophet who said, “He will be kept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God,” was not a mere intellectual believer in authoritative theology. This truth-knowing human had discovered God; he was not merely talking about God.

155:6.7 (1731.5) I admonish you to give up the practice of always quoting the prophets of old and praising the heroes of Israel, and instead aspire to become living prophets of the Most High and spiritual heroes of the coming kingdom. To honor the God-knowing leaders of the past may indeed be worth while, but why, in so doing, should you sacrifice the supreme experience of human existence: finding God for yourselves and knowing him in your own souls?

155:6.8 (1732.1) Every race of mankind has its own mental outlook upon human existence; therefore must the religion of the mind ever run true to these various racial viewpoints. Never can the religions of authority come to unification. Human unity and

없다. 인간 합일과 필사자의 형제신분은 오로지 영의 종교가 주는 초(超)자질에 의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족 간의 마음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인류는 똑같은 신성하고 영원한 영이 내재되어 있다. 모든 인간의 형제신분에 대한 희망은, 권위를 지닌 다양한 마음에서의 종교가, 통합하고 고귀하게 하는 영의 종교—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종교—를 주입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희미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오직 실현될 수 있다.

권위의 종교는 단지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반목시키게 할 뿐이지만, 영의 종교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함께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납득하고 공감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권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믿음에서의 확실성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현 상태로의 세상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영의 종교는 믿음의 다양성을 충분히 허락하면서 단지 체험의 합일—운명의 확실성—를 요구할 뿐이다. 영(靈)의 종교는 관점과 견해에서의 확실성이 아니라, 단지 통찰력의 확실성을 요구한다. 영의 종교는 지적 식견의 확실성이 아니라, 오직 영적 느낌의 합일만을 요구한다. 권위의 종교는 생명 없는 교리들로 정형화시키지만; 영의 종교는 사랑하는 봉사와 선행과 자비스러운 돌봄이라는 고상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가져다주는 증가하는 기쁨과 해방으로 자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러한 전통에 얽매인 열매 없는 악한 때에 처해 있었다는 이유로 너희가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조상들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느님을 찾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으며, 그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기에 하느님을 많이 알았던 아담의 시대 이래로, 그들만큼 하느님을 찾아낸 다른 민족은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모세 시대 이래로, 하느님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위한 유구하고도 부단한 이스라엘의 투쟁과정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 왔다. 지친 여러 세대동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애쓰고 땀 흘리며 신음하고 진통을 겪었고 그리고 오해받고 경멸당하는 민족의 슬픔을 체험하고 고통을 참아왔으며, 모든 것은 알맞게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진리의 발견에 더욱 가까이 온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모세 이래로 아모스와 호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보다 분명하고 진실된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선포하기위해 부름을 받은 아버지의 보다 큰 계시를 위한 길이 준비되었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보다 더 만족스럽고 감동적인 모험은 단 한가지뿐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신성한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최극 체험이다. 또한 하느님의 뜻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룩하지 않은 직업

mortal brotherhood can be achieved only by and through the superendowment of the religion of the spirit. Racial minds may differ, but all mankind is indwelt by the same divine and eternal spirit. The hope of human brotherhood can only be realized when, and as, the divergent mind religions of authority become impregnated with, and overshadowed by, the unifying and ennobling religion of the spirit — the religion of personal spiritual experience.

155:6.9 (1732.2) The religions of authority can only divide men and set them in conscientious array against each other; the religion of the spirit will progressively draw men together and cause them to become understandingly sympathetic with one another. The religions of authority require of men uniformity in belief, but this is impossible of realization in the present state of the world. The religion of the spirit requires only unity of experience — uniformity of destiny — making full allowance for diversity of belief. The religion of the spirit requires only uniformity of insight, not uniformity of viewpoint and outlook. The religion of the spirit does not demand uniformity of intellectual views, only unity of spirit feeling. The religions of authority crystallize into lifeless creeds; the religion of the spirit grows into the increasing joy and liberty of ennobling deeds of loving service and merciful ministration.

155:6.10 (1732.3) But watch, lest any of you look with disdain upon the children of Abraham because they have fallen on these evil days of traditional barrenness. Our forefathers gave themselves up to the persistent and passionate search for God, and they found him as no other whole race of men have ever known him since the times of Adam, who knew much of this as he was himself a Son of God. My Father has not failed to mark the long and untiring struggle of Israel, ever since the days of Moses, to find God and to know God. For weary generations the Jews have not ceased to toil, sweat, groan, travail, and endure the sufferings and experience the sorrows of a misunderstood and despised people, all in order that they might come a little nearer the discovery of the truth about God. And, notwithstanding all the failures and falterings of Israel, our fathers progressively, from Moses to the times of Amos and Hosea, did reveal increasingly to the whole world an ever clearer and more truthful picture of the eternal God. And so was the way prepared for the still greater revelation of the Father which you have been called to share.

155:6.11 (1732.4) Never forget there is only one adventure which is more satisfying and thrilling than the attempt to discover the will of the living God, and that is the supreme experience of honestly trying to do that divine will. And fail not to remember that the will of God can be done in any

도 있고 세속적인 직업도 있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된 자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것은 곧, 진리에 복종되고 사랑으로 고귀해지며 자비에 지배되고 공정함—공의—으로 절제되어진 자의 삶이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에 보낼 영은 진리의 영일뿐 아니라 이상적인 미(美)의 영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말씀을 신학적 권위를 가진 옛날 기록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하느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는지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알아본다. 그 중여의 경로가 명백하게 인간이라고 해서 신성한 진리가 평가절하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들 중의 대부분은 하느님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실현하는 데에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자주 너희들에게 진지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가르쳤던 이유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정신적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믿고 충분히-신뢰하는 어린아이들의 영적 단순성이다. 너희가 하느님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자라야만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혼 속에서 일단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곧 다른 사람들의 혼 속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막강한 우주의 모든 창조체와 창조물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실체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사려깊은 사색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혼에, 무슨 수로 아버지가 최극 충성과 신성한 이상의 하느님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있겠는가? 마음은 영적 본성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그 곳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느님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너희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증명을 의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을-알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실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영의 열매들.

2. 너희가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모험에서, 영원의 하느님, 곧 너희가 시간 속에서 그의 현존을 미리-맛본, 그 영원의 하느님을 발견하는 소망의 추구에, 너의 모든 것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남김없이 내걸어왔다는,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증거를 너희의 전 일생 계획이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는 가장 희미하게 깜박이는 신앙에 언제까지나 응답하실 것이다. 그는 물질적이고 미신적인 원시인들의 감정들을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 약하여 권위 종교에 소극적인 찬성의 태도로서 지

earthly occupation. Some callings are not holy and others secular. All things are sacred in the lives of those who are spirit led; that is, subordinated to truth, ennobled by love, dominated by mercy, and restrained by fairness — justice. The spirit which my Father and I shall send into the world is not only the Spirit of Truth but also the spirit of idealistic beauty.

155:6.12 (1732.5) You must cease to seek for the word of God only on the pages of the olden records of theologic authority. Those who are born of the spirit of God shall henceforth discern the word of God regardless of whence it appears to take origin. Divine truth must not be discounted because the channel of its bestowal is apparently human. Many of your brethren have minds which accept the theory of God while they spiritually fail to realize the presence of God. And that is just the reason why I have so often taught you that the kingdom of heaven can best be realized by acquiring the spiritual attitude of a sincere child. It is not the mental immaturity of the child that I commend to you but rather the spiritual simplicity of such an easy-believing and fully-trusting little one. It is not so important t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fact of God as that you should increasingly grow in the ability to feel the presence of God.

155:6.13 (1733.1) When you once begin to find God in your soul, presently you will begin to discover him in other men's souls and eventually in all the creatures and creations of a mighty universe. But what chance does the Father have to appear as a God of supreme loyalties and divine ideals in the souls of men who give little or no time to the thoughtful contemplation of such eternal realities? While the mind is not the seat of the spiritual nature, it is indeed the gateway thereto.

155:6.14 (1733.2)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prove to other men that you have found God; you cannot consciously produce such valid proof, albeit there are two positive and powerful demonstrations of the fact that you are God-knowing, and they are:

155:6.15 (1733.3) 1. The fruits of the spirit of God showing forth in your daily routine life.

155:6.16 (1733.4) 2. The fact that your entire life plan furnishes positive proof that you have unreservedly risked everything you are and have on the adventure of survival after death in the pursuit of the hope of finding the God of eternity, whose presence you have foretasted in time.

155:6.17 (1733.5) Now, mistake not, my Father will ever respond to the faintest flicker of faith. He takes note of the physical and superstitious emotions of the primitive man. And with those honest but fearful souls whose faith is so weak

적으로 순응하는 것에 불과한 자의, 그러한 정직 하지만 두려움에 찬 혼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려는, 그러한 모든 미약한 시도까지도, 아버지는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격려한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불려나온 너희들에게는 전심을 다해 믿는 것이 기대된다. 너희의 신앙은 몸, 마음 그리고 영의 통합된 태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도들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종교가 영적 진보와 이상적인 모험에 따르는 모진 현실에 맞서는 것이 두려워 피신할 수 있는 신학적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너희를 찾으셔서, 너희를 높였으며, 고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영성화(靈性化)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희를 찾아 아들로 맞으신 하느님을 찾기 위한 영원한 모험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실제체험의 사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는 말씀을 완결하고 나자, 안드레를 불러 페니키아가 있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였다: “우리의 길을 가도록 하자..

that it amounts to little more than an intellectual conformity to a passive attitude of assent to religions of authority, the Father is ever alert to honor and foster even all such feeble attempts to reach out for him. But you who have been called out of darkness into the light are expected to believe with a whole heart; your faith shall dominate the combined attitudes of body, mind, and spirit.

155:6.18 (1733.6) You are my apostles, and to you religion shall not become a theologic shelter to which you may flee in fear of facing the rugged realities of spiritual progress and idealistic adventure; but rather shall your religion become the fact of real experience which testifies that God has found you, idealized, ennobled, and spiritualized you, and that you have enlisted in the eternal adventure of finding the God who has thus found and sonshipped you.

155:6.19 (1733.7)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he beckoned to Andrew and, pointing to the west toward Phoenicia, said: “Let us be on our way.”

제 156 편 티레와 시돈에서 체류

⇨ 155

유랜시아 책

15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6 편 티레와 시돈에서 체류

섹션

소개

제 1 장. 시리아 여인

제 2 장. 시돈에서의 가르침

제 3 장.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행함

제 4 장. 티레에서

제 5 장. 티레에서의 예수의 가르침

제 6 장.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PAPER 156

THE SOJOURN AT TYRE AND SID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yrian Woman

2. Teaching in Sidon

3. The Journey up the Coast

4. At Tyre

5. Jesus' Teaching at Tyre

6. The Return from Phoenicia

소개

6월 10일 금요일 오후,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시돈 근처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그들은 어느 부유한 여인의 집에 멈추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절정에 달했었을 당시, 벳세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 집에 묵었고, 그들은 이 상쾌한 주변 분위기 가운데서 안식일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북부의 해안가 도시들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기 전까지, 거의 2주일 반을 시돈과 그 인근에서 보냈다.

이 6월의 안식일은 엄청난 평온의 하나였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함께 그들이 시돈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던 종교에 대한 주(主)의 강연들에 관한 자신들의 명상에 흠뻑 몰두되었다. 그들 모두는 그가 그들에게 말했었던 것의 어떤 것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 중의 아무도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INTRODUCTION

^{156:0.1 (1734.1)} ON FRIDAY afternoon, June 10, Jesus and his associates arrived in the environs of Sidon, where they stopped at the home of a well-to-do woman who had been a patient in the Bethsaida hospital during the times when Jesus was at the height of his popular favor. The evangelists and the apostles were lodged with her friends in the immediate neighborhood, and they rested over the Sabbath day amid these refreshing surroundings. They spent almost two and one-half weeks in Sidon and vicinity before they prepared to visit the coast cities to the north.

^{156:0.2 (1734.2)} This June Sabbath day was one of great quiet.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were altogether absorbed in their meditations regarding the discourses of the Master on religion to which they had listened en route to Sidon. They were all able to appreciate something of what he had told them, but none of them fully grasped the import of his teaching.

제 1 장. 시리아 여인

주(主)가 묵었던 카루스카의 집 근처에 한 시

1. THE SYRIAN WOMAN

^{156:1.1 (1734.3)} There lived near the home of Karuska, where the Master lodged, a Syrian

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예수가 엄청난 치유자이자 선생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 왔었기에, 그녀는 이 안식일 오후에 그녀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왔다. 12살 가량의 이 아이는 발작과 여러 고통스런 현시활동을 특징으로 가진 극심한 신경 질환을 앓고 있었다.

예수는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이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니, 아무에게도 카루스카의 집에 있는 자신의 현존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었다. 그들은 주(主)의 지시를 따랐으나, 카루스카의 하인은 그 시리아 여인인 노라나의 집에 가서 예수가 그녀의 여주인의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 열망하는 여인에게 병든 딸을 예수께 데려가서 치료받으라고 재촉하였었다. 이 어머니는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귀신, 더러운 영에 붙잡혔다고 믿고 있었다.

노라나가 그녀의 딸과 함께 도착했을 때, 알페오 쌍둥이는 통역을 통하여 주(主)가 쉬는 중이고 그리고 방해될 수 없음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노라나는 아이와 함께 주(主)가 휴식을 완결할 때까지 바로 그 곳에 남아 있겠다고 대답하였다. 베드로 또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 동안 많은 가르침과 치료를 한 후 매우 피곤해져서 페니키아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설명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노라나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 그녀는 단지 “당신의 주(主)를 보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치유자가 내 딸을 바라보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도마가 그녀를 둘러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에만 부딪혔을 뿐이었다. 그녀가 도마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주(主)가 내 아이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의 막강한 일들에 관하여 들어왔고,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主)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을 둘러보내려고 하다니,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녀의 그런 말에 도마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시몬 젤로페가 노라나를 타이르려고 나섰다; “여인이여, 당신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방인입니다. 주(主)가 은혜 받은 가족의 자녀에게 줄 의향으로 빵을 집어 들고,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당신이 기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라나는 시몬의 일격에서 화를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단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을 납득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저는 단지 하나의 개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주(主)에 관해서는, 저는 믿고있는 개입니다. 그분이 내 딸을 보도록 하겠다고 나는 결심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 내 딸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가 그녀를 고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분이신, 당신조차도 아이들의 상에서 어찌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는 특권을 개에게서 감히 빼앗으려 하지는 않을

woman who had heard much of Jesus as a great healer and teacher, and on this Sabbath afternoon she came over, bringing her little daughter. The child, about twelve years old, was afflicted with a grievous nervous disorder characterized by convulsions and other distressing manifestations.

156:1.2 (1734.4) Jesus had charged his associates to tell no one of his presence at the home of Karuska, explaining that he desired to have a rest. While they had obeyed their Master's instructions, the servant of Karuska had gone over to the house of this Syrian woman, Norana, to inform her that Jesus lodged at the home of her mistress and had urged this anxious mother to bring her afflicted daughter for healing. This mother, of course, believed that her child was possessed by a demon, an unclean spirit.

156:1.3 (1734.5) When Norana arrived with her daughter, the Alpheus twins explained through an interpreter that the Master was resting and could not be disturbed; whereupon Norana replied that she and the child would remain right there until the Master had finished his rest. Peter also endeavored to reason with her and to persuade her to go home. He explained that Jesus was weary with much teaching and healing, and that he had come to Phoenicia for a period of quiet and rest. But it was futile; Norana would not leave. To Peter's entreaties she replied only: "I will not depart until I have seen your Master. I know he can cast the demon out of my child, and I will not go until the healer has looked upon my daughter."

156:1.4 (1734.6) Then Thomas sought to send the woman away but met only with failure. To him she said: "I have faith that your Master can cast out this demon which torments my child. I have heard of his mighty works in Galilee, and I believe in him. What has happened to you, his disciples, that you would send away those who come seeking your Master's help?" And when she had thus spoken, Thomas withdrew.

156:1.5 (1735.1) Then came forward Simon Zelotes to remonstrate with Norana. Said Simon: "Woman, you are a Greek-speaking gentile. It is not right that you should expect the Master to take the bread intended for the children of the favored household and cast it to the dogs." But Norana refused to take offense at Simon's thrust. She replied only: "Yes, teacher, I understand your words. I am only a dog in the eyes of the Jews, but as concerns your Master, I am a believing dog. I am determined that he shall see my daughter, for I am persuaded that, if he shall but look upon her, he will heal her. And even you, my good man, would not dare to deprive the dogs of the privilege of obtaining the crumbs which chance to fall from the children's table."

것입니다.”

바로 이 때 그 어린 아이가 그들 모두 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그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보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처지가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들어왔던 당신들의 주(主)에게는 이 모습이 호소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내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수가 이제 밖으로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하였다: “아. 여자여, 네 신앙이 크다. 그렇게 크니 나는 네가 갈망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로움 안에서 네 길을 가라. 네 딸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그 소녀는 그 시각부터 회복되었다. 노라나와 아이가 떠나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 발생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이러한 분부에 따랐으나, 어머니와 아이는 시돈은 물론 모든 변두리 지방까지 그 소녀의 병이 치유된 사실을 그치지 않고 선포했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는 며칠 안에 속소를 옮기는 것이 상책임을 발견했다.

이튿날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가르치면서 시리아 여인의 딸의 병 고침을 거론하며 말하였다: “항상 그래 왔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가르침에서 구원받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했는데,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신앙을 보이는데 유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왕국은 이방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제 2 장. 시돈에서의 가르침

시돈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그의 일행은 다리를 하나 건넜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들이 다리를 건너가면서, 예수가 말한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는 그것을 지나가도 좋지만, 그 위에 거처할 장소를 지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4명의 제자들이 시돈에서 그들의 수고를 시작하자, 예수는 도시 북쪽에 위치한 어느 한 집, 주스타와 그녀의 어머니 버니서가 사는 집으로 가셨다. 예수는 매일 아침마다 주스타의 집에서 24명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후와 저녁에는 시돈으로 가서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시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크게 기운을 얻었다. 그것은 그들의 짧은 체류기

156:1.6 (1735.2) At just this time the little girl was seized with a violent convulsion before them all, and the mother cried out: “There, you can see that my child i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If our need does not impress you, it would appeal to your Master, who I have been told loves all men and dares even to heal the gentiles when they believe. You are not worthy to be his disciples. I will not go until my child has been cured.”

156:1.7 (1735.3) Jesus, who had heard all of this conversation through an open window, now came outside, much to their surprise, and said: “O woman, great is your faith, so great that I cannot withhold that which you desire; go your way in peace. Your daughter already has been made whole.” And the little girl was well from that hour. As Norana and the child took leave, Jesus entreated them to tell no one of this occurrence; and while his associates did comply with this request, the mother and the child ceased not to proclaim the fact of the little girl's healing throughout all the countryside and even in Sidon, so much so that Jesus found it advisable to change his lodgings within a few days.

156:1.8 (1735.4) The next day, as Jesus taught his apostles, commenting on the cure of the daughter of the Syrian woman, he said: “And so it has been all the way along; you see for yourselves how the gentiles are able to exercise saving faith in the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Verily, verily, I tell you that the Father's kingdom shall be taken by the gentiles if the children of Abraham are not minded to show faith enough to enter therein.”

2. TEACHING IN SIDON

156:2.1 (1735.5) In entering Sidon, Jesus and his associates passed over a bridge, the first one many of them had ever seen. As they walked over this bridge, Jesus, among other things, said: “This world is only a bridge; you may pass over it, but you should not think to build a dwelling place upon it.”

156:2.2 (1735.6) As the twenty-four began their labors in Sidon, Jesus went to stay in a home just north of the city, the house of Justa and her mother, Bernice. Jesus taught the twenty-four each morning at the home of Justa, and they went abroad in Sidon to teach and preach during the afternoons and evenings.

156:2.3 (1735.7)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greatly cheer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gentiles of Sidon received their message; during

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왕국으로 들어온 때문이었다. 페니키아에 머물렀던 약 6주간은 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유대인 복음 저작자들은, 예수 자신의 민족에서의 그토록 큰 숫자가 그에 거슬러 적대하는 대열에 있던 바로 그 때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 이방인들에 의한 이러한 따뜻한 수용이 있었다는 기록을 가볍게 지나치는 버릇이 있었다.

여러 면에서 이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충분히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많은 시리아-페니키아인들은 예수가 하느님 같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역시 예수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위 이교도라 불리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과 전체 우주의 법들이 한결같다는 주(主)의 가르침에 대해 훌륭한 납득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개인이나 인종이나 민족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우주 아버지와 관여해서는 그 어떤 편애주의도 없다는 것; 우주는 전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법에-지속되고 어김없이 의존할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과감하게 나섰다. 모든 세대를 두루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두려워해왔다.

예수는 그가 그의 적들과 맞설 용기가 부족해서 갈릴리에서 도망쳤던 것이 아니었음을 24명에게 분명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가 아직은 확립된 종교와 공개적인 충돌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순교자가 되기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주스타의 집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진리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시돈에 머무는 동안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영적 진보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정의(正義)로 움직여 나가든지, 아니면 죄와 악 속으로 후퇴하든지 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과거 안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반면에 왕국의 더 큰 실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훈계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어린애신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동료관계 안에서 신성한 아들관계의 충분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타일렀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의 제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배워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의식적인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품는 것조차도 거절해야만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들은 용서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원인이 비어있는 그러한 양심을 유지해야만 한다.”

예수는 이방인들이 나타낸 유머에서의 날카로운 감각을 크게 즐겼다. 시리아 여인 노라나가 주(主)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

their short sojourn many were added to the kingdom. This period of about six weeks in Phoenicia was a very fruitful time in the work of winning souls, but the later Jewish writers of the Gospels were wont lightly to pass over the record of this warm reception of Jesus' teachings by these gentiles at this very time when such a large number of his own people were in hostile array against him.

156:2.4 (1736.1) In many ways these gentile believers appreciated Jesus' teachings more fully than the Jews. Many of these Greek-speaking Syrophoenicians came to know not only that Jesus was like God but also that God was like Jesus. These so-called heathen achieve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Master's teachings about the uniformity of the laws of this world and the entire universe. They grasped the teaching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races, or nations; that there is no favoritism with the Universal Father; that the universe is wholly and ever law-abiding and unfailingly dependable. These gentiles were not afraid of Jesus; they dared to accept his message. All down through the ages men have not been unable to comprehend Jesus; they have been afraid to.

156:2.5 (1736.2) Jesus made it clear to the twenty-four that he had not fled from Galilee because he lacked courage to confront his enemies. They comprehended that he was not yet ready for an open clash with established religion, and that he did not seek to become a martyr. It was during one of these conferences at the home of Justa that the Master first told his disciples that “even though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my words of truth shall not.”

156:2.6 (1736.3) The theme of Jesus' instructions during the sojourn at Sidon was spiritual progression. He told them they could not stand still; they must go forward in righteousness or retrogress into evil and sin. He admonished them to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in the past while you push forward to embrace the greater realities of the kingdom.” He besought them not to be content with their childhood in the gospel but to strive for the attainment of the full stature of divine sonship in the communion of the spirit and in the fellowship of believers.

156:2.7 (1736.4) Said Jesus: “My disciples must not only cease to do evil but learn to do well; you must not only be cleansed from all conscious sin, but you must refuse to harbor even the feelings of guilt. If you confess your sins, they are forgiven; therefore must you maintain a conscience void of offense.”

156:2.8 (1736.5) Jesus greatly enjoyed the keen sense of humor which these gentiles exhibited. It was the sense of humor displayed by Norana, the Syrian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위대하고 끈기 있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인 유머에서의 감각이었다. 예수는 그의 민족-유대인-이 유머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매우 애석해했다. 언젠가 그가 도마에게 말하였다. “나의 민족은 자신들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유머에서의 깊은 이해가 거의 없는 것 같다.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짐이 되는 종교는 유머에서의 감각을 지닌 민족 사이에서 결코 생겨날 수가 없다. 그들은 또한 일관성도 부족하다; 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 내고 낙타를 삼키고 있다.”

제 3 장.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행함

6월 28일, 화요일에, 예수와 그 일행은 시돈을 떠나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포르피리온과 헬두아로 갔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서 잘 받아들여졌고, 가르침과 설교의 이 주간 동안 많은 이들이 왕국에 추가되었다. 사도들은 포르피리온에서 설교하였고, 전도자들은 헬두아에서 가르쳤다. 24명이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분주한 동안 예수는 사나홀 정도 그들을 떠나서 베이루트의 해안 도시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그 곳에서 지난해에 벳세다에 함께 있었던, 신자였던 말라크라는 시리아인을 방문하였다.

7월 6일, 수요일에, 예수의 일행 모두는 시돈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까지 주스타의 집에 머물렀다.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티레를 향해 떠나 사렙타의 길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7월 11일, 월요일에 티레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사이에서 일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실체 안에서 셈족에 기원을 둔 초기 가나안-사람의 후손들이었다. 이들 민족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려는 이들 이방인들의 열성과 지켜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다수가 믿으려고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다.

제 4 장. 티레에서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그들은 티레에서 가르쳤다. 사도들은 각각 전도자 한 명을 데리고 갔고, 이렇게 둘씩 티레의 온 구석과 그 인근 지역을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이 바쁜 항구도시의 여러 언어의 주민들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왕국의 밖으로 향한 동료관계에 들어가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는 티레에서 남쪽 3-4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유대인 신자의 집에 그의 본부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도시 국가 티레의 왕이었던 히람의 무덤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woman, as well as her great and persistent faith, that so touched the Master's heart and appealed to his mercy. Jesus greatly regretted that his people — the Jews — were so lacking in humor. He once said to Thomas: "My people take themselves too seriously; they are just about devoid of an appreciation of humor. The burdensome religion of the Pharisees could never have had origin among a people with a sense of humor. They also lack consistency; they strain at gnats and swallow camels."

3. THE JOURNEY UP THE COAST

^{156:3.1 (1736.6)} On Tuesday, June 28, the Master and his associates left Sidon, going up the coast to Porphyreon and Heldua. They were well received by the gentiles, and many were added to the kingdom during this week of teaching and preaching. The apostles preached in Porphyreon and the evangelists taught in Heldua. While the twenty-four were thus engaged in their work, Jesus left them for a period of three or four days, paying a visit to the coast city of Beirut, where he visited with a Syrian named Malach, who was a believer, and who had been at Bethsaida the year before.

^{156:3.2 (1737.1)} On Wednesday, July 6, they all returned to Sidon and tarried at the home of Justa until Sunday morning, when they departed for Tyre, going south along the coast by way of Sarepta, arriving at Tyre on Monday, July 11. By this time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were becoming accustomed to working among these so-called gentiles, who were in reality mainly descended from the earlier Canaanite tribes of still earlier Semitic origin. All of these peoples spoke the Greek language. It was a great surprise to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to observe the eagerness of these gentiles to hear the gospel and to note the readiness with which many of them believed.

4. AT TYRE

^{156:4.1 (1737.2)} From July 11 to July 24 they taught in Tyre. Each of the apostles took with him one of the evangelists, and thus two and two they taught and preached in all parts of Tyre and its environs. The polyglot population of this busy seaport heard them gladly, and many were baptized into the outward fellowship of the kingdom. Jesus maintained his headquarters at the home of a Jew named Joseph, a believer, who lived three or four miles south of Tyre, not far from the tomb of Hiram who had been king of the city-state of Tyre during the times of David and Solomon.

이 두 주간 동안, 날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작은 모임들을 수행하기 위해 알렉산더 항구의 길을 따라서 티레로 들어갔으며, 매일 밤 대부분의 그들은 도시의 남쪽,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매일 신자들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도시로부터 나와서, 그가 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주(主)는 7월 20일 오후에 단 한번 티레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는 그때 온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련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아들의 사명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왕국의 복음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때를 맞아 멜카트 성전의 문이 그에게 개방되었다. 후년에, 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옛 사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음을 기록하는 것이 흥미롭다.

티레와 시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적인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염료인, 티레의 자주색을 제조하던 염색공장의 많은 영도자들이 왕국을 믿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염색업의 자원인 바다 동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염료를 만드는 자들은 새로운 이들 갑각류의 서식처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지구의 끝까지 갔는데,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의 메시지—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

제 5 장. 티레에서의 예수의 가르침

이 수요일 오후에 가르치시던 중에, 예수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래에 있는 검은 흙의 진흙과 거름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햇빛을 향해 순수하고 하얀 꽃을 피우는 흰 백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말했다, “필사 사람은, 비록 그가 인간 본성에서의 동물적 토양에 그의 기원과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신앙으로 자신의 영적 본성을 하늘의 진리인 햇빛 속으로 자라 올라가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예수가 자신의 직업—목수—과 상관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를 사용했다. “영적 자질에서의 고귀한 성격의 성장을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세우라”는 그의 교훈을 주시는 도중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동료들 사이에서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영의 인도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목수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는, 그의 벌레 먹고 안으로 썩은 나무를 받듯이 만들고, 치수를 재고, 매끄럽게 다듬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 튼튼하지 못한 기둥에 모든 그의 수고를 증여하였는데, 시간과 폭풍의 강습을 견디도록 지으려는 건물의 기초로 사용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

^{156:4.2 (1737.3)} Daily, for this period of two weeks,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entered Tyre by way of Alexander's mole to conduct small meetings, and each night most of them would return to the encampment at Joseph's house south of the city. Every day believers came out from the city to talk with Jesus at his resting place. The Master spoke in Tyre only once, on the afternoon of July 20, when he taught the believers concerning the Father's love for all mankind and about the mission of the Son to reveal the Father to all races of men. There was such an interest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mong these gentiles that, on this occasion, the doors of the Melkarth temple were opened to him, and it is interesting to record that in subsequent years a Christian church was built on the very site of this ancient temple.

^{156:4.3 (1737.4)} Many of the leaders in the manufacture of Tyrian purple, the dye that made Tyre and Sidon famous the world over, and which contributed so much to their world-wide commerce and consequent enrichment, believed in the kingdom. When, shortly thereafter, the supply of the sea animals which were the source of this dye began to diminish, these dye makers went forth in search of new habitats of these shellfish. And thus migrating to the ends of the earth, they carried with them the message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 the gospel of the kingdom.

5. JESUS' TEACHING AT TYRE

^{156:5.1 (1737.5)} On this Wednesday afternoon, in the course of his address, Jesus first told his followers the story of the white lily which rears its pure and snowy head high into the sunshine while its roots are grounded in the slime and muck of the darkened soil beneath. “Likewise,” said he, “mortal man, while he has his roots of origin and being in the animal soil of human nature, can by faith raise his spiritual nature up into the sunlight of heavenly truth and actually bear the noble fruits of the spirit.”

^{156:5.2 (1738.1)} It was during this same sermon that Jesus made use of his first and only parable having to do with his own trade — carpentry. In the course of his admonition to “Build well the foundations for the growth of a noble character of spiritual endowments,” he said: “In order to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you must be born of the spirit. You must be taught by the spirit and be led by the spirit if you would live the spirit-filled life among your fellows. But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e foolish carpenter who wastes valuable time squaring, measuring, and smoothing his worm-eaten and inwardly rotting timber and then, when he has thus bestowed all of his labor upon the unsound beam, must reject it as unfit to enter into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 which he would

다. 확대되고 고귀해지는 영적 본성, 그렇게 필사자 마음을 변환시키고 그리고는 다시-창조된 그 마음이 관계적-연합되어 불멸의 운명인 혼의 진화를 달성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것처럼 적절하게 지탱하는 성격의 지적 그리고 도덕적 기초들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하라. 너희의 영 본성—공동으로 창조된 혼—은 살아있는 성장이지만, 그러나 개별존재의 마음과 도덕은 그것으로부터 인간적 발달과 신성한 운명의 좀 더 높은 이들 현시활동들이 돌아나야 할 토양이다. 진화하는 혼의 그 토양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이 마음과 영이 병합된 창조체의 운명은 영적이고 신성하다.”

바로 이 날 저녁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主)여, 어찌하여 저희들은 하느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대한 당신의 계시에서 그가 결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다니엘에게 대답하였다:

“초기 히브리 예언자들이 아주 희미하게 아버지를 본 것과는 달리, 이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알기 시작하고 있음이 보이고 있으니, 네가 그러한 질문을 묻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의 모든 일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자연 현상에서 그리고 인간 체험의 모든 비상한 에피소드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았다. 그들은 선과 악, 양쪽을 모두 하느님과 연결지었다. 그들은 그가 모세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파라오의 가슴을 경직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선이건 악이건,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가지면, 그는 이러한 비상한 감성들을 '주님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저리하라 했고, 또한 이리로 저기로 가라 하였다.'고 내세우면서 이유를 돌리려는 습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너무 자주, 아주 맹렬하게, 유혹에 빠졌으므로, 우리의 선조들은 하느님이 시험하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더욱 강하게 하려고 그러한 쪽으로 그들을 이끈다고 믿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참으로, 이제 그 이상을 알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도 자주 그들 자신의 이기심의 충동 때문에, 그리고 동물적 본성의 자극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이러한 길로 유혹될 때, 내가 너희에게 충고하건대, 너희는 한편으로는 그 유혹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인지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표현을 찾고 있는, 영, 마음 그리고 육체의 에너지를, 한층 더 높은 경로 안으로 그리고 더욱 이상적인 목표를 향하도록, 지적으로 방향을 다시 정하라. 이러한 길 안에서, 너희는 동물적 본성과 영적 본성간의 낭비적이고 약화시키는 이들 갈등을 거의 전부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사자 사명활동을 들어 올리는 가장 높은 유형으로, 너희의 유혹을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인간 의지의 기세를 통해서 하나의 욕망을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construct to withstand the assaults of time and storm. Let every man make sure that the intellectual and moral foundations of character are such as will adequately support the superstructure of the enlarging and ennobling spiritual nature, which is thus to transform the mortal mind and then, in association with that re-created mind, is to achieve the evolvement of the soul of immortal destiny. Your spirit nature — the jointly created soul — is a living growth, but the mind and morals of the individual are the soil from which these higher manifestations of human development and divine destiny must spring. The soil of the evolving soul is human and material, but the destiny of this combined creature of mind and spirit is spiritual and divine.”

156:5.3 (1738.2) On the evening of this same day Nathaniel asked Jesus: “Master, why do we pray that God will lead us not into temptation when we well know from your revelation of the Father that he never does such things?” Jesus answered Nathaniel:

156:5.4 (1738.3) “It is not strange that you ask such questions seeing that you are beginning to know the Father as I know him, and not as the early Hebrew prophets so dimly saw him. You well know how our forefathers were disposed to see God in almost everything that happened. They looked for the hand of God in all natural occurrences and in every unusual episode of human experience. They connected God with both good and evil. They thought he softened the heart of Moses and hardened the heart of Pharaoh. When man had a strong urge to do something, good or evil, he was in the habit of accounting for these unusual emotions by remarking: ‘The Lord spoke to me saying, do thus and so, or go here and there.’ Accordingly, since men so often and so violently ran into temptation, it became the habit of our forefathers to believe that God led them thither for testing, punishing, or strengthening. But you, indeed, now know better. You know that men are all too often led into temptation by the urge of their own selfishness and by the impulses of their animal natures. When you are in this way tempted, I admonish you that, while you recognize temptation honestly and sincerely for just what it is, you intelligently redirect the energies of spirit, mind, and body, which are seeking expression, into higher channels and toward more idealistic goals. In this way may you transform your temptations into the highest types of uplifting mortal ministry while you almost wholly avoid these wasteful and weakening conflicts between the animal and spiritual natures.

156:5.5 (1738.4) “But let me warn you against the folly of undertaking to surmount temptation by the effort

욕망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싶다. 만일 너희가 더욱 떨어지고 더욱 낮은 본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참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너희 마음이 행실을 갈아 치려고 하는 곳, 곧 너희가 유혹으로 인지하는 더욱 낮고 그리고 불품없는 이상의 행실 습성을 갈아치울 열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더 높고도 더 이상적인 행위의 형태가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실재적 관심으로 개발되고 그에 대해 사랑하도록 하는 장소, 그 영적 유리함이 있는 장소로 와야만 한다. 너희는 이러한 길 안에서, 필사자 욕망들에 대한 기만적인 억압으로 점점 증가되는 지나친 부담을 지기 보다는, 오히려 영적 변환을 통하여 해방될 것이다. 오래되고 그리고 열등한 것들은, 새로운 것 그리고 우월한 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잊힐 것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빛을 받은 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항상 아름다움이 추악함을 이겨내고 승리한다. 새롭고도 진지한 영적 애정의 내물아치는 에너지 안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악에 지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밤이 늦도록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였고, 많은 답변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다시 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세 넘치는 야망, 지능적 판단 그리고 숙성된 지혜는 물질적 성공에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지도력은 본성적 능력, 사려 깊은 분별력, 의지력 그리고 결단력에 달려있다. 영적 운명은 신앙,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하느님을 찾아내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전심을 다하는 갈망에 달려 있다.

너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낙담에 빠지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악을 향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천적으로 죄 있음은 아니다. 너희의 유감스러운 어떤 체험들을 전부 잊으려는 것에 너희가 실패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 시간 속에서 너희가 잊는 데에 실패한 오류들은 영원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너희 운명의 길게-내다보는 관점, 즉 너희 생애의 우주 확장을 재빠르게 알아차림으로써, 너희의 혼에 지워진 짐을 가볍게 해라.

마음에서의 불완전이나 육체에서의 욕구로서 혼의 가치를 평가해보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단 하나의 불운한 인간 에피소드를 기준 삼아서 혼을 심판하거나 그 운명을 평가하지 말라. 너의 영적 운명은 오로지 너의 영적 소망과 목적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 진다.

종교는 하느님을-알고 있는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不滅)의 혼이 겪는 독점적인 영적 체험이지만, 그러나 도덕적 힘과 영적 에너지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데에 그리고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세들이다. 이들 도덕적 그리고 영적 자질들은 모든 차원의 인간 삶을 더욱 부유하고 더욱 의미 넘치게 만든다.

of supplanting one desire by another and supposedly superior desire through the mere force of the human will. If you would be truly triumphant over the temptations of the lesser and lower nature, you must come to that place of spiritual advantage where you have really and truly developed an actual interest in, and love for, those higher and more idealistic forms of conduct which your mind is desirous of substituting for these lower and less idealistic habits of behavior that you recognize as temptation. You will in this way be delivered through spiritu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be increasingly overburdened with the deceptive suppression of mortal desires. The old and the inferior will be forgotten in the love for the new and the superior. Beauty is always triumphant over ugliness in the hearts of all who are illuminated by the love of truth. There is mighty power in the expulsive energy of a new and sincere spiritual affection. And again I say to you, be not overcome by evil but rather overcome evil with good.”

156:5.6 (1739.1) Long into the night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continued to ask questions, and from the many answers we would present the following thoughts,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156:5.7 (1739.2) Forceful ambition, intelligent judgment, and seasoned wisdom are the essentials of material success. Leadership is dependent on natural ability, discretion, will power, and determination. Spiritual destiny is dependent on faith, love, and devotion to truth —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the wholehearted desire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156:5.8 (1739.3) Do not become discouraged by the discovery that you are human. Human nature may tend toward evil, but it is not inherently sinful. Be not downcast by your failure wholly to forget some of your regrettable experiences. The mistakes which you fail to forget in time will be forgotten in eternity. Lighten your burdens of soul by speedily acquiring a long-distance view of your destiny, a universe expansion of your career.

156:5.9 (1739.4) Make not the mistake of estimating the soul's worth by the imperfections of the mind or by the appetites of the body. Judge not the soul nor evaluate its destiny by the standard of a single unfortunate human episode. Your spiritual destiny is conditioned only by your spiritual longings and purposes.

156:5.10 (1739.5) Religion is the exclusively spiritual experience of the evolving immortal soul of the God-knowing man, but moral power and spiritual energy are mighty forces which may be utilized in dealing with difficult social situations and in solving intricate economic problems. These moral and spiritual endowments make all levels of human living richer and more meaningful.

너희가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도록 배운다면, 너희는 웅졸하고 초라한 일생을 살도록 운명이 정해진다.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성한 사랑은, 모든 바로 그 만족이-필요한 곳을 찾으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창조체의 본성에 사랑이 적을수록 사랑의 필요는 더욱 더 커지고, 신성한 사랑은 더욱 많이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찾아 나선다. 사랑은 결코 자아-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아-증여되는 것일 수가 없다. 신성한 사랑은 자아-억제될 수가 없다; 그것은 사심없이 증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국을 믿는 자들은 정의(正義)가 분명히 승리한다는 맹목적 신앙, 모든-혼을 다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왕국 건축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는 이들은 경배 넘치는 교제로서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에 영감을 주고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생의 맹렬한 돌진으로부터 어떻게 한 걸음 비켜서는지—물질적 실존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가—를 점점 더 배워야만 한다.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는 불행 때문에 용기를 잃게 되거나 실망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 믿는 이들은 순전히 물질적 격변의 결과로서 생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질세계의 에피소드에 동요되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향하는 후보자는 필사자 삶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변천과 골칫거리에 대하여 어떤 활기 넘치고 그리고 건설적인 기술을 실습하는 자이다. 참된 믿는 자는 날마다, 그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을 발견 한다.

영적 삶은 진정한 자아-존중을 힘이 넘치게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아-존중은 자아-찬미가 아니다. 자아-존중은 항상 자기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와 조화-협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수용능력의 척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진정한 신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영원한 진리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하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어제보다 오늘, 인간성에 대하여 선(善)을 계시하는 일에 더 많은 방법을 가지느냐? 너희는 작년의 너희보다, 금년에 더 나은 정의(正義) 권고자가 되었느냐? 너희는 굶주린 혼들을 영적 왕국으로 이끄는 너희의 기법에서 점점 더 예술적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너희의 이상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너희의 관념이 너희가 필사 동료들과 관계적-연합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유익한 시민이 되도록 것처럼 실천적인가? 너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땅의 왕국의 시민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저에게, 영적인 것들은 하느님께 돌리라.

156:5.11 (1739.6) You are destined to live a narrow and mean life if you learn to love only those who love you. Human love may indeed be reciprocal, but divine love is outgoing in all its satisfaction-seeking. The less of love in any creature's nature, the greater the love need, and the more does divine love seek to satisfy such need. Love is never self-seeking, and it cannot be self-bestowed. Divine love cannot be self-contained; it must be unselfishly bestowed.

156:5.12 (1739.7) Kingdom believers should possess an implicit faith, a whole-souled belief, in the certain triumph of righteousness. Kingdom builders must be undoubting of the truth of the gospel of eternal salvation. Believers must increasingly learn how to step aside from the rush of life — escape the harassments of material existence — while they refresh the soul, inspire the mind, and renew the spirit by worshipful communion.

156:5.13 (1739.8) God-knowing individuals are not discouraged by misfortune or downcast by disappointment. Believers are immune to the depression consequent upon purely material upheavals; spirit lovers are not perturbed by the episodes of the material world. Candidates for eternal life are practitioners of an invigorating and constructive technique for meeting all of the vicissitudes and harassments of mortal living. Every day a true believer lives, he finds it *easier* to do the right thing.

156:5.14 (1740.1) Spiritual living mightily increases true self-respect. But self-respect is not self-admiration. Self-respect is always co-ordinate with the love and service of one's fellows. It is not possible to respect yourself more than you love your neighbor; the one is the measure of the capacity for the other.

156:5.15 (1740.2) As the days pass, every true believer becomes more skillful in alluring his fellows into the love of eternal truth. Are you more resourceful in revealing goodness to humanity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Are you a better righteousness recommender this year than you were last year? Are you becoming increasingly artistic in your technique of leading hungry souls into the spiritual kingdom?

156:5.16 (1740.3) Are your ideals sufficiently high to insure your eternal salvation while your ideas are so practical as to render you a useful citizen to function on earth in association with your mortal fellows? In the spirit, your citizenship is in heaven; in the flesh, you are still citizens of the earth kingdoms. Render to the Caesars the things which are material and to God those which are spiritual.

진화하는 혼의 영적 수용능력의 척도는 진리 안에 있는 너희의 신앙과 사람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 성격의 강한 힘의 척도는 양심을 품으려는 것에 저항하는 너희의 능력과, 그리고 깊은 슬픔과의 마주침에서 곱씹는 것을 견디는 너희의 능력이다. 좌절은 너희의 실제 자아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참된 거울이다

너희가 점점 나이 들고 그리고 왕국의 관련사들을 점점 더 체험함에 따라, 너희는 문제 있는 필사자들을 다루는 데에서 더욱 요령이 생기고, 완고한 연관-동료들과 살아가는 데서 점점 더 관용으로 대해지고 있는가? 요령은 사회의 지렛대에 받침이고, 관용은 위대한 혼을 가리키는 표식이다. 만일 이 같은 진귀하고 매력적인 성품들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들을 피하기 위한 너희의 값진 노력에서 좀 더 민첩하고 능숙하게 될 것이다. 것처럼 지혜로운 혼들은 감정조절의 부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품위 있게 늙어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진리를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노력에서 부정직함과 부당함을 피하라. 땀 흘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추구하지 말고 마땅치 않은 동정을 구하지 말라. 사랑하라, 너희의 공적에 상관없이 신성한 근원과 인간 근원 양쪽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무상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답례로 그들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랑하라. 그러나 다른 모든 명예와 과찬에 관련된 것에서는 정직하게 너희에게 속한 것만 추구하라.

하느님을-의식하는 필사자는 구원을 확신한다; 그는 일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정직하며 한결같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용감하게 참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또한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참된 신자는 좋은-행실을 하는데 그가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다. 역경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돋구며, 장애물은 대담해진 왕국 건축자의 노력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티레를 떠나기 전에 예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갈릴리 해안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티레를 떠나기 전 날, 예수는 그의 연관-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12명의 전도자들에게는 자신과 12명의 사도들이 가기로 된 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가라고 말하였다. 이곳에서 예수와 헤어진 후 전도자들은 다시는 그렇게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제 6 장.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6월 24일, 일요일 정오경에, 예수와 12명의

156:5.17 (1740.4) The measure of the spiritual capacity of the evolving soul is your faith in truth and your love for man, but the measure of your human strength of character is your ability to resist the holding of grudges and your capacity to withstand brooding in the face of deep sorrow. Defeat is the true mirror in which you may honestly view your real self.

156:5.18 (1740.5) As you grow older in years and more experienced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are you becoming more tactful in dealing with troublesome mortals and more tolerant in living with stubborn associates? Tact is the fulcrum of social leverage, and tolerance is the earmark of a great soul. If you possess these rare and charming gifts, as the days pass you will become more alert and expert in your worthy efforts to avoid all unnecessary social misunderstandings. Such wise souls are able to avoid much of the trouble which is certain to be the portion of all who suffer from lack of emotional adjustment, those who refuse to grow up, and those who refuse to grow old gracefully.

156:5.19 (1740.6) Avoid dishonesty and unfairness in all your efforts to preach truth and proclaim the gospel. Seek no unearned recognition and crave no undeserved sympathy. Love, freely receive from both divine and human sources regardless of your deserts, and love freely in return. But in all other things related to honor and adulation seek only that which honestly belongs to you.

156:5.20 (1740.7) The God-conscious mortal is certain of salvation; he is unafraid of life; he is honest and consistent. He knows how bravely to endure unavoidable suffering; he is uncomplaining when faced by inescapable hardship.

156:5.21 (1740.8) The true believer does not grow weary in well-doing just because he is thwarted. Difficulty whets the ardor of the truth lover, while obstacles only challenge the exertions of the undaunted kingdom builder.

156:5.22 (1740.9) And many other things Jesus taught them before they made ready to depart from Tyre.

156:5.23 (1740.10) The day before Jesus left Tyre for the return to the region of the Sea of Galilee, he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directed the twelve evangelists to go back by a route different from that which he and the twelve apostles were to take. And after the evangelists here left Jesus, they were never again so intimately associated with him.

6. THE RETURN FROM PHOENICIA

156:6.1 (1741.1) About noon on Sunday, July 24, Jesus and the twelve left the home of Joseph,

사도들은 티레의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을 떠나 해안을 따라 내려와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루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평안의 말을 전하였다. 베드로가 7월 25일 저녁에 그들에게 설교하였다.

화요일에 그들은 프톨레마이스를 떠나 티베리아스 도로를 거쳐 내륙의 동쪽으로 가면서 요타파타로 향하였다. 수요일에 요타파타에 도착하여 그 곳의 신자들에게 왕국의 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다. 목요일에 요타파타를 떠나 나사렛-레바논 산을 잇는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라마를 거쳐 스블론이라는 마을로 향하였다. 금요일에 라마에서 집회를 열고 안식일을 그 곳에서 보냈다. 스블론에 도착한 것은 31일 일요일이었으며, 그곳에서 그 날 저녁 집회를 열고 다음 날 아침 떠났다.

그들은 스블론을 떠나 케자리아 근처 막달라-시돈 도로와 만나는 곳을 넘어 여행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버나움 남쪽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길을 향하였고, 그 곳에서 그들은 다윗 세배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취해야 할 다음 활동에 대해 상의할 작정이었다.

다윗과의 짧은 회의에서 그들은 많은 영도자들이 게레사 근처의 호수 반대편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바로 그 날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은 호수를 건너갔다. 하루 동안 그들은 언덕에서 조용히 쉬었으며, 다음 날에는 주(主)가 언젠가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었던 근처의 공원으로 갔다. 이곳에서 3일간 쉬면서 그들은 매일 집회를 열었는데, 약 50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때 많았던 신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다.

예수가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떠나 페니키아에 머무는 동안 그의 적들은 저들 모든 운동이 와해되었으며, 예수가 서둘러 떠난 것은 너무 소스라치게 겁을 먹었기 때문이므로,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러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적극적인 반대가 거의 가라앉았다. 신자들은 다시 한 번 공개적인 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막 거치며 지나갔던 큰 시험을 통하여, 단련받은 그리고 참된 생존자들의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단합이 발생하고 있었다.

헤롯의 형제 빌립은 예수를 반신반의하며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主)가 자유롭게 살면서 일해도 좋다는 전갈을 보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와 그의 일행의 가르침을 금한다는 명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논쟁의 대상으로서의

south of Tyre, going down the coast to Ptolemais. Here they tarried for a day, speaking words of comfort to the company of believers resident there. Peter preached to them on the evening of July 25.

156:6.2 (1741.2) On Tuesday they left Ptolemais, going east inland to near Jotapata by way of the Tiberias road. Wednesday they stopped at Jotapata and instructed the believers further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Thursday they left Jotapata, going north on the Nazareth-Mount Lebanon trail to the village of Zebulun, by way of Ramah. They held meetings at Ramah on Friday and remained over the Sabbath. They reached Zebulun on Sunday, the 31st, holding a meeting that evening and departing the next morning.

156:6.3 (1741.3) Leaving Zebulun, they journeyed over to the junction with the Magdala-Sidon road near Gischala, and thence they made their way to Gennesaret on the western shores of the lake of Galilee, south of Capernaum, where they had appointed to meet with David Zebedee, and where they intended to take counsel as to the next move to be made in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156:6.4 (1741.4) During a brief conference with David they learned that many leaders were then gathered together on the opposite side of the lake near Kheresa, and accordingly, that very evening a boat took them across. For one day they rested quietly in the hills, going on the next day to the park, near by, where the Master once fed the five thousand. Here they rested for three days and held daily conferences, which were attended by about fifty men and women, the remnants of the once numerous company of believers resident in Capernaum and its environs.

156:6.5 (1741.5) While Jesus was absent from Capernaum and Galilee, the period of the Phoenician sojourn, his enemies reckoned that the whole movement had been broken up and concluded that Jesus' haste in withdrawing indicated he was so thoroughly frightened that he would not likely ever return to bother them. All active opposition to his teachings had about subsided. The believers were beginning to hold public meetings once more, and there was occurring a gradual but effective consolidation of the tried and true survivors of the great sifting through which the gospel believers had just passed.

156:6.6 (1741.6) Philip, the brother of Herod, had become a halfhearted believer in Jesus and sent word that the Master was free to live and work in his domains.

156:6.7 (1741.7) The mandate to close the synagogues of all Jewry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all his followers had worked adversely upon

예수가 사라지자마자, 전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영도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개심이었다. 회당의 많은 통치자들은 회당을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에게 은밀히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선생들은 요한의 추종자이며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였다.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가 호수 반대편에 있는 그의 형제 빌립의 관찰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자,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헤롯은 자신이 갈릴리에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에 서명을 하긴 하였지만 페레아에서의 체포는 위임하지 않았기에 예수가 갈릴리 외부에 머물고 있는 한, 그로서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그는 또한 같은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달하였다.

이상이 서기 29년 8월초까지의 상황이었다. 이때는 주(主)가 페니키아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 이 세상 사명에서의 이 마지막이자 사건 많은 1년 동안에, 흩어지고 시험받고 지친 그의 무리들을 재조직하기 시작한 때였다.

주(主)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새로운 종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의 종교를 선포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싸움의 논점이 분명하게 그려졌다.

the scribes and Pharisees. Immediately upon Jesus' removing himself as an object of controversy, there occurred a reaction among the entire Jewish people; there was general resentment against the Pharisees and the Sanhedrin leaders at Jerusalem. Many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s began surreptitiously to open their synagogues to Abner and his associates, claiming that these teachers were followers of John and not disciples of Jesus.

156:6.8 (1741.8) Even Herod Antipas experienced a change of heart and, on learning that Jesus was sojourning across the lake in the territory of his brother Philip, sent word to him that, while he had signed warrants for his arrest in Galilee, he had not so authorized his apprehension in Perea, thus indicating that Jesus would not be molested if he remained outside of Galilee; and he communicated this same ruling to the Jews at Jerusalem.

156:6.9 (1742.1) And that was the situation about the first of August, A.D. 29, when the Master returned from the Phoenician mission and began the reorganization of his scattered, tested, and depleted forces for this last and eventful year of his mission on earth.

156:6.10 (1742.2) The issues of battle are clearly drawn as the Master and his associates prepare to begin the proclamation of a new religion, the religion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who dwells in the minds of men.

제 157 편 케자리아-빌립보에서

⇨ 156

유랜시아 책

15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7 편 케자리아-빌립보에서

섹션

소개

- 제 1 장. 성전 세금 징수원
- 제 2 장. 벳세다-줄리아스에서
- 제 3 장. 베드로의 고백
- 제 4 장. 왕국에 관한 가르침
- 제 5 장. 새로운 개념
- 제 6 장. 다음 날 오후
- 제 7 장. 안드레의 회의(會議)

PAPER 157

AT CAESAREA-PHILIPPI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Temple-Tax Collector
- 2. At Bethsaida-Julias
- 3. Peter's Confession
- 4. The Talk about the Kingdom
- 5. The New Concept
- 6. The Next Afternoon
- 7. Andrew's Conference

소개

예수는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케자리아-빌립보 근방에서 짧은 체류를 하기에 앞서, 8월 7일 일요일에 다윗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이 방문은 배를 만드는 세베대의 목공소에서 발생하기로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동생인 유다와 나사렛의 모든 식구—마리아와 예수의 모든 형제, 자매들—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예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 곳으로 가셨다. 마리아와 형제들은 이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연히도 예수가 빌립의 관할 지역인 호수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밀정들이 도착하자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예수가 가족들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지원부대를 청해 놓고 예수가 도착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물론 이 같은 사태는 가족들의 누구도 예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다와 루트는 바리새인들의 감시를 피해 예수께 전갈을 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INTRODUCTION

^{157:0.1 (1743.1)} BEFORE Jesus took the twelve for a short sojourn in the vicinity of Caesarea-Philippi, he arranged through the messengers of David to go over to Capernaum on Sunday, August 7, for the purpose of meeting his family. By prearrangement this visit was to occur at the Zebedee boatshop. David Zebedee had arranged with Jude, Jesus' brother, for the presence of the entire Nazareth family — Mary and all of Jesus' brothers and sisters — and Jesus went with Andrew and Peter to keep this appointment. It was certainly the intention of Mary and the children to keep this engagement, but it so happened that a group of the Pharisees, knowing that Jesus wa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lake in Philip's domains, decided to call upon Mary to learn what they could of his whereabouts. The arrival of these Jerusalem emissaries greatly perturbed Mary, and noting the tension and nervousness of the entire family, they concluded that Jesus must have been expected to pay them a visit. Accordingly they installed themselves in Mary's home and, after summoning reinforcements, waited patiently for Jesus' arrival. And this, of course, effectively prevented any of the family from attempting to

오후 일찍 다윗의 메신저들이 예수께 바리새인들이 그의 어머니 집문 앞 층계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따라서 예수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예수와 그의 이 세상 가족들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이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제 1 장. 성전 세금 징수원

예수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배 목공소가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를 알아 본 한 성전 세금징수원이 그들에게 와서 한 쪽으로 베드로를 불러 말하였다: “너의 주(主)는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냐?” 베드로는 적들의 종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예수도 공헌하라는 그의 제시를 듣고 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세금징수원의 얼굴에 나타난 묘한 표정을 보자, 그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봉사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지불하는 반 세겔을 납부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구실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임을 정확하게 추측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물론 주(主)는 성전 세금을 내신다. 문 옆에서 기다리면 내가 곧 세금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경솔하게 말하였다. 그들의 자금은 유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호수 건너편에 있었다. 베드로, 안드레, 예수 중에는 아무에게도 돈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돈을 가지러 벳세다로 쉽게 갈 수도 없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세금 징수원에게 자신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말하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네가 약속을 하였다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네 말을 지키기 위해 다시 어부 일을 하겠느냐? 베드로야,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태도에 대해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동안, 네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시장에서 고기를 판 후에 그 돈으로 우리 세 명 몫의 세금을 그 징수원에게 주어라.”

가까이에 있던 다윗의 비밀 메신저가 이 모든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해변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친구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을 때, 다윗의 메신저와 그의 어부 친구는 고기가 가득 찬 몇 개의 큰 바구니를 그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를 도와 근처에 있는 상인에게 가져다 팔았다. 다윗의 메신저가 좀 더 보태어서 세 명에 해당되는 성전 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준비하였다. 세금징수원은 예수의 일행이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늦게 납부한 것에 대

keep their appointment with Jesus. Several times during the day both Jude and Ruth endeavored to elude the vigilance of the Pharisees in their efforts to send word to Jesus, but it was of no avail.

157:0.2 (1743.2) Early in the afternoon David's messengers brought Jesus word that the Pharisees were encamped on the doorstep of his mother's house, and therefore he made no attempt to visit his family. And so again, through no fault of either, Jesus and his earth family failed to make contact.

1. THE TEMPLE-TAX COLLECTOR

157:1.1 (1743.3) As Jesus, with Andrew and Peter, tarried by the lake near the boatshop, a temple-tax collector came upon them and, recognizing Jesus, called Peter to one side and said: “Does not your Master pay the temple tax?” Peter was inclined to show indignation at the suggestion that Jesus sh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religious activities of his sworn enemies, but, noting a peculiar expression on the face of the tax collector, he rightly surmised that it was the purpose to entrap them in the act of refusing to pay the customary half shekel for the support of the temple services at Jerusalem. Accordingly, Peter replied: “Why of course the Master pays the temple tax. You wait by the gate, and I will presently return with the tax.”

157:1.2 (1744.4) Now Peter had spoken hastily. Judas carried their funds, and he was across the lake. Neither he, his brother, nor Jesus had brought along any money. And knowing that the Pharisees were looking for them, they could not well go to Bethsaida to obtain money. When Peter told Jesus about the collector and that he had promised him the money, Jesus said: “If you have promised, then should you pay. But wherewith will you redeem your promise? Will you again become a fisherman that you may honor your word? Nevertheless, Peter, it is well in the circumstances that we pay the tax. Let us give these men no occasion for offense at our attitude. We will wait here while you go with the boat and cast for the fish, and when you have sold them at yonder market, pay the collector for all three of us.”

157:1.3 (1744.1) All of this had been overheard by the secret messenger of David who stood near by, and who then signaled to an associate, fishing near the shore, to come in quickly. When Peter made ready to go out in the boat for a catch, this messenger and his fisherman friend presented him with several large baskets of fish and assisted him in carrying them to the fish merchant near by, who purchased the catch, paying sufficient, with what was added by the messenger of David, to meet the temple tax for the three. The collector accepted the tax, foregoing the penalty for tardy

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세금을 받았다.

베드로가 입에 돈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은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에는 고기의 입에서 돈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다; 기적에 가까운 이 같은 이야기들은 흔한 것들이었다. 베드로가 그들을 떠나 배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예수가 반농담조로 말씀하였다: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대개 국가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타인들인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라! 아마도 네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을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 성전 세금을 가지고 나타났으므로 후에 이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해 기적으로 확대되어 기록된 것은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예수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거의 해가 질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리셨다. 메신저들은 아직도 마리아의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 세 사람은 배에 올라 갈릴리해의 동쪽 해안을 향해 천천히 배를 저었다.

payment because they had been for some time absent from Galilee.

157:1.4 (1744.2) It is not strange that you have a record of Peter's catching a fish with a shekel in its mouth. In those days there were current many stories about finding treasures in the mouths of fishes; such tales of near miracles were commonplace. So, as Peter left them to go toward the boat, Jesus remarked, half-humorously: "Strange that the sons of the king must pay tribute; usually it is the stranger who is taxed for the upkeep of the court, but it behooves us to afford no stumbling block for the authorities. Go hence! maybe you will catch the fish with the shekel in its mouth." Jesus having thus spoken, and Peter so soon appearing with the temple tax,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episode became later expanded into a miracle as recorded by the writer of Matthew's Gospel.

157:1.5 (1744.3) Jesus, with Andrew and Peter, waited by the seashore until nearly sundown. Messengers brought them word that Mary's house was still under surveillance; therefore, when it grew dark, the three waiting men entered their boat and slowly rowed away toward the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제 2 장. 벳새다-줄리아스에서

8월 8일 월요일에 예수와 12명의 사도들이 벳새다-줄리아스 가까이에 있는 마가단 공원에 머물고 있을 때, 100명 이상의 신자들, 전도자들, 여자 전도자들, 그리고 왕국의 건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 가버나움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수가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바리새인들도 또한 이곳에 왔다. 이 무렵 일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신자들과의 사적(私的) 집회를 갖기 전에 예수는 바리새인들도 참석한 대중 집회를 가졌다. 바리새인들은 주(主)께 야유를 퍼붓거나 모임을 방해하려고 애썼다. 방해자들의 영도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표적이 나타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가 날이 꺾었다고 한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비가 오겠다고 하고;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너희는 타는 듯한 더위가 오겠다고 한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식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들은 그렇게 철저하게도 식별하지 못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 악한-마음과 위선적인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2. AT BETHSAIDA-JULIAS

157:2.1 (1744.4) On Monday, August 8, while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ere encamped in Magadan Park, near Bethsaida-Julias, more than one hundred believers, the evangelists, the women's corp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came over from Capernaum for a conference. And many of the Pharisees, learning that Jesus was here, came also. By this time some of the Sadducees were united with the Pharisees in their effort to entrap Jesus. Before going into the closed conference with the believers, Jesus held a public meeting at which the Pharisees were present, and they heckled the Master and otherwise sought to disturb the assembly. Said the leader of the disturbers: "Teacher, we would like you to give us a sign of your authority to teach, and then, when the same shall come to pass, all men will know that you have been sent by God." And Jesus answered them: "When it is evening, you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heaven is red; in the morning it will be foul weather, for the heaven is red and lowering.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you say showers will come; when the wind blows from the south, you say scorching heat will come. How is it that you so well know how to discern the face of the heavens but are so utterly unable to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To those who would know the truth, already has a sign been given; but to an evil-minded and hypocritical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고 물러가서 그의 추종자들과 가질 저녁 집회준비를 하였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예수와 12사도들이 제안 받은 케사리아-빌립보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자마자 데카폴리스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에 걸쳐 연합된 임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主)는 데카폴리스 임무에 대한 계획에 참여하였는데, 일행들을 해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많은 학문의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종교의 형식에 대한 그들의 깊은 충성심에 속지 마라.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광 진정한 종교의 힘에만 관심을 가져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죽은 종교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왕국의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너희의 신앙이다. 편견으로 인해 눈이 멀거나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도록 너희 자신을 버려두지 말라. 전통 존경을 용납하여, 그렇게 너희가 납득한 것을 왜곡시켜서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통을 숭배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라. 단지 평화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한 종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를 시키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다. 너희가 영원한 실체들의 이상인, 진리와 전심을 다한 사랑에 빠지지 않는 한, 너희의 가슴속에 어떠한 평화나 마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영원의 정의(正義)로운 실체에 반하는 시간의 죄 많은 쾌락이—너희 앞에 놓여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신앙과 희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너희 혼 속에서 동료들을 위한 봉사의 감정이 생겨나면, 그것들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 가슴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러한 애정의 충동을 네 동료들의 실제 필요에 대한 지적 사명활동으로서 표현해라.”

제 3 장. 베드로의 고백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12명의 사도들은 마가단 공원을 떠나 영주(領主) 빌립의 관할 구역의 수도인 케사리아-빌립보를 향해 떠났다. 케사리아-빌립보는 매우 아름다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요단강이 지하의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언덕 사이의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의 정상이란 눈에 들어오고 언덕 위에서 남쪽으로는 요단강 상류와 갈릴리 바다의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예수는 왕국 관련사들을 초기에 체험하면서 헤르몬 산에 가보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관련사들의 마지막 신(新)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그는 시련과 승리의 이 산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셨다. 그는 이곳에서 사도들이 다가올 고된 시기를 대비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앞으로 새로운 힘을 성취하게 되기

generation no sign shall be given.”

157:2.2 (1745.1)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withdrew and prepared for the evening conference with his followers. At this conference it was decided to undertake a united mission throughout all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as soon as Jesus and the twelve should return from their proposed visit to Caesarea-Philippi. The Master participated in planning for the Decapolis mission and, in dismissing the company, said: “I say to you,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Be not deceived by their show of much learning and by their profound loyalty to the forms of religion. Be only concerned with the spirit of living truth and the power of true religion. It is not the fear of a dead religion that will save you but rather your faith in a living experience in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Do not allow yourselves to become blinded by prejudice and paralyzed by fear. Neither permit reverence for the traditions so to pervert your understanding that your eyes see not and your ears hear not. It is not the purpose of true religion merely to bring peace but rather to insure progress. And there can be no peace in the heart or progress in the mind unless you fall wholeheartedly in love with truth, the ideals of eternal realities. The issues of life and death are being set before you — the sinful pleasures of time against the righteous realities of eternity. Even now you should begin to find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fear and doubt as you enter upon the living of the new life of faith and hope. And when the feelings of service for your fellow men arise within your soul, do not stifle them; when the emotions of love for your neighbor well up within your heart, give expression to such urges of affection in intelligent ministry to the real needs of your fellows.”

3. PETER'S CONFESSION

157:3.1 (1745.2) Early Tuesday morning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left Magadan Park for Caesarea-Philippi, the capital of the Tetrarch Philip's domain. Caesarea-Philippi was situated in a region of wondrous beauty. It nestled in a charming valley between scenic hills where the Jordan poured forth from an underground cave. The heights of Mount Hermon were in full view to the north, while from the hills just to the south a magnificent view was had of the upper Jordan and the Sea of Galilee.

157:3.2 (1745.3) Jesus had gone to Mount Hermon in his early experience with the affairs of the kingdom, and now that he was entering upon the final epoch of his work, he desired to return to this mount of trial and triumph, where he hoped the apostles might gain a new vis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acquire new strength for the

를 바라섰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걷다가 메롬 샘물 근처를 지날 때쯤,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최근에 페니키아와 그 밖의 곳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主)를 여기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멈추었을 때 예수는 갑자기 12명의 사도들에게 그 전에는 한번도 묻지 않았던 그 자신에 관한 질문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질문을 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이 신도들에게 여러 달에 걸쳐 하늘의 왕국의 본질과 성격을 가르치셨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본성과 하늘의 왕국과의 그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사도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할 시기가 왔음을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뽕나무 아래에 자리 잡게 되자, 주(主)는 선택된 사도들과 그의 오랜 관계적-연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합의 하나를 가지려고 준비를 마쳤다.

사도들중의 반 이상이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나 혹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적들조차도 그가 마귀들의 영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고발로 그의 힘을 설명하면서, 그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도들은 또한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다 살아 난 세례자 요한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많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교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다 듣고 난 예수는 일어서서 주변에 반원(半圓)을 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의 손으로 끌어버리는 손짓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깜짝 놀라게 강조하며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다: “당신은 해방자,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앉아 있던 11명의 나머지 사도들도 베드로가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였다는 동의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여전히 그들 앞에 선 채로 말씀하였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께 의하여 너희에게 드러내졌다. 너희가 이제 나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케자리아-빌립보로 가는 여행을 다시 계속하였으며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셀수스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들은 그 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왕국의 사업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하였다.

trying times just ahead. As they journeyed along the way, about the time of passing south of the Waters of Merom, the apostles fell to talking among themselves about their recent experiences in Phoenicia and elsewhere and to recounting how their message had been received, and how the different peoples regarded their Master.

157:3.3 (1745.4) As they paused for lunch, Jesus suddenly confronted the twelve with the first question he had ever addressed to them concerning himself. He asked this surprising question, “Who do men say that I am?”

157:3.4 (1746.1) Jesus had spent long months in training these apostles as to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well knew the time had come when he must begin to teach them more about his own nature and his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kingdom. And now, as they were seated under the mulberry trees, the Master made ready to hold one of the most momentous sessions of his long association with the chosen apostles.

157:3.5 (1746.2) More than half the apostles participated in answering Jesus' question. They told him that he was regarded as a prophet or as an extraordinary man by all who knew him; that even his enemies greatly feared him, accounting for his powers by the indictment that he was in league with the prince of devils. They told him that some in Judea and Samaria who had not met him personally believed he was John the Baptist risen from the dead. Peter explained that he had been, at sundry times and by various persons, compared with Moses, Elijah, Isaiah, and Jeremiah.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is report, he drew himself upon his feet, and looking down upon the twelve sitting about him in a semicircle, with startling emphasis he pointed to them with a sweeping gesture of his hand and asked, “But who say you that I am?” There was a moment of tense silence. The twelve never took their eyes off the Master, and then Simon Peter, springing to his feet, exclaimed: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the eleven sitting apostles arose to their feet with one accord, thereby indicating that Peter had spoken for all of them.

157:3.6 (1746.3) When Jesus had beckoned them again to be seated, and while still standing before them, he said: “This has been revealed to you by my Father. The hour has come when you should know the truth about me. But for the time being I charge you that you tell this to no man. Let us go hence.”

157:3.7 (1746.4) And so they resumed their journey to Caesarea-Philippi, arriving late that evening and stopping at the home of Celsus, who was expecting them. The apostles slept little that night; they seemed to sense that a great event in their lives and in the work of the kingdom had

transpired.

제 4 장. 왕국에 관한 가르침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일과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래로 사도들은 여러 번의 경우에 예수를 메시아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잠깐 동안 예수와 그들이 기다리던 해방자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같은 희망이 그들의 가슴속에 생김을 주지 않고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고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돈상태에 있어 왔는데, 이는 아직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기대되는 메시아의 개념과, 그들이 가슴속에 지녀온 이 비상한 사람과의 비상한 관계적-연합에서의 체험 사이에 있는 갈등 때문이었다.

수요일 늦은 오전에 사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셀수스의 정원에 모였다. 지난 밤 내내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난 후 계속, 시몬 베드로와 시몬 켈로페는 주(主)가 단순한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신성한 아들로 전심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 모두가 오도록 그들 형제들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 이 두 시몬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보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도 그들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안드레가 사도들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던 한편, 그의 동생 시몬 베드로가 다수의 동의를 받고 점점 더 12명의 대변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오 무렵에 예수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모두 정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주(主)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는 그 친근하고 형제우애의 미소로써 그 긴장을 완화시키셨다. 그 미소는 추종자들이 그들 자신들을, 또는 그들 자신들에게 관련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내 보이는 그의 특징이었다. 그는 명령하는 손짓으로 그들이 앉아있어야 함을 지시하였다. 12명의 사도들은 주(主)께서 그들에게 나오실 때 다시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그런 외형적인 존중의 표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다가 올 데카폴리스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와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였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선언에 동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그 결정에 변함이 없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듣자마자 12명의 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몇 걸음 나와 말하였다: “예, 주(主)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4. THE TALK ABOUT THE KINGDOM

157:4.1 (1746.5) Since the occasions of Jesus' baptism by John and the turning of the water into wine at Cana, the apostles had, at various times, virtually accepted him as the Messiah. For short periods some of them had truly believed that he was the expected Deliverer. But hardly would such hopes spring up in their hearts than the Master would dash them to pieces by some crushing word or disappointing deed. They had long been in a state of turmoil due to conflict between the concepts of the expected Messiah which they held in their minds and the experience of their extraordinary association with this extraordinary man which they held in their hearts.

157:4.2 (1746.6) It was late forenoon on this Wednesday when the apostles assembled in Celsus' garden for their noontime meal. During most of the night and since they had arisen that morning,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had been earnestly laboring with their brethren to bring them all to the point of the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Master, not merely as the Messiah, but also as the divine Son of the living God. The two Simons were well-nigh agreed in their estimate of Jesus, and they labored diligently to bring their brethren around to the full acceptance of their views. While Andrew continued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apostolic corps, his brother, Simon Peter, was becoming, increasingly and by common consent, the spokesman for the twelve.

157:4.3 (1747.1) They were all seated in the garden at just about noon when the Master appeared. They wore expressions of dignified solemnity, and all arose to their feet as he approached them. Jesus relieved the tension by that friendly and fraternal smile which was so characteristic of him when his followers took themselves, or some happening related to themselves, too seriously. With a commanding gesture he indicated that they should be seated. Never again did the twelve greet their Master by arising when he came into their presence. They saw that he did not approve of such an outward show of respect.

157:4.4 (1747.2) After they had partaken of their meal and were engaged in discussing plans for the forthcoming tour of the Decapolis, Jesus suddenly looked up into their faces and said: “Now that a full day has passed since you assented to Simon Peter's declarat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I would ask if you still hold to your decision?” On hearing this, the twelve stood upon their feet, and Simon Peter, stepping a few paces forward toward Jesus, said: “Yes, Master, we do.”

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서신 채로, 예수가 12명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대사들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너희가 단지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의 아주 깊은 혼에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이 고백을 너희 안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영의 통찰력으로 할 때에는, 나는 이 기초 위에 하늘의 왕국의 형제 신분을 이룩할 것임을 선언하도록 이끌려진다. 이 영적 실체의 반석(磐石) 위에, 나는 내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 영적 동료관계의 살아있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의 무리들은 신성한 영의 이 인간들의 형제우애관계에 대항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은 언제나 이러한 영 동료관계의 결속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의 신성한 안내자와 조언자가 되실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후계자들에게 내가 이제 밖으로 향하는 왕국 열쇠들—현세적 일들에 대한 권한들—왕국의 동료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연합에서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넘겨주겠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당분간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하였다.

예수는 자기 사도들의 충성심과 고결한-순수성에 대해 신앙을 갖기 시작하였다. 주(主)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감당할 신앙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희망이 깨져버린 중에서도 새로운 섭리시대라는 새 빛으로 솟아나고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날부터 예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사도들의 신앙을 신뢰하실 수 있었다.

그 날 이후로 예수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관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아들됨을 자아-의식하게 된 사람들은 영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영광과 명예를 세우고 있는 아들관계에서의 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인간 돌들이다.

예수는 이같이 말씀하고 12명에게 그들끼리 언덕으로 가서 저녁식사 시간 전까지 지혜와 힘과 영적 지침들을 구하라고 지도하였다. 제자들은 주(主)께서 시키신 대로 따랐다.

제 5 장. 새로운 개념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새롭고 뚜렷한 특징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의심할 수 없는 그의 신성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었다. 예수의 세례와 가나의 결혼식 사건 이후 사도들은 메시아로서 그를 다양하게 생각했으나, 그가 신성하여야

We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Peter sat down with his brethren.

157:4.5 (1747.3) Jesus, still standing, then said to the twelve: “You are my chosen ambassadors, but I know that, in the circumstances, you could not entertain this belief as a result of mere human knowledge. This is a revelation of the spirit of my Father to your inmost souls. And when, therefore, you make this confession by the insight of the spirit of my Father which dwells within you, I am led to declare that upon this foundation will I build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Upon this rock of spiritual reality will I build the living temple of spiritual fellowship in the eternal realities of my Father’s kingdom. All the forces of evil and the hosts of sin shall not prevail against this human fraternity of the divine spirit. And while my Father’s spirit shall ever be the divine guide and mentor of all who enter the bonds of this spirit fellowship, to you and your successors I now deliver the keys of the outward kingdom — the authority over things temporal — the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of this association of men and women as fellows of the kingdom.” And again he charged them, for the time being,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that he was the Son of God.

157:4.6 (1747.4) Jesus was beginning to have faith in the loyalty and integrity of his apostles. The Master conceived that a faith which could stand what his chosen representatives had recently passed through would undoubtedly endure the fiery trials which were just ahead and emerge from the apparent wreckage of all their hopes into the new light of a new dispensation and thereby be able to go forth to enlighten a world sitting in darkness. On this day the Master began to believe in the faith of his apostles, save one.

157:4.7 (1747.5) And ever since that day this same Jesus has been building that living temple upon that same eternal foundation of his divine sonship, and those who thereby become self-conscious sons of God are the human stones which constitute this living temple of sonship erecting to the glory and honor of the wisdom and love of the eternal Father of spirits.

157:4.8 (1747.6)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directed the twelve to go apart by themselves in the hills to seek wisdom, strength, and spiritual guidance until the time of the evening meal. And they did as the Master admonished them.

5. THE NEW CONCEPT

157:5.1 (1748.1) The new and vital feature of Peter’s confession was the clear-cut recognition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of his unquestioned divinity. Ever since his baptism and the wedding at Cana these apostles had variously regarded him

한다는 것은 민족의 해방자에 대한 유대인 개념의 일 부분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신성으로부터 솟아 나오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백에서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고귀한 사실, 병합된 본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예수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리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의 연합이라는 이 같은 위대한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자신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로 생각하고 싶어 하였다. 예수는 결코 자신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그를 맞추어 가면서 그들의 메시아 관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같은 계획의 수행은 거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그는 대담하게 세 번째 계획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계획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12명에게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직접 선언하는 것이었다.

3년 동안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라고 주장해 왔었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사도들은 그가 기다려 온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점점 더 주장해 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밝히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병합된 본성의 개념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더 이상 확신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그는 대담하게 그 자신의 본성을 밝히셨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였다.

as the Messiah, but it was not a part of the Jewish concept of the national deliverer that he should be *divine*. The Jews had not taught that the Messiah would spring from divinity; he was to be the “anointed one,” but hardly had they contemplated him as being “the Son of God.” In the second confession more emphasis was placed upon the *combined nature*, the supernal fact that he w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and it was upon this great truth of the union of the human nature with the divine nature that Jesus declared he would build the kingdom of heaven.

157:5.2 (1748.2) Jesus had sought to live his life on earth and complete his bestowal mission as the Son of Man. His followers were disposed to regard him as the expected Messiah. Knowing that he could never fulfill their Messianic expectations, he endeavored to effect such a modification of their concept of the Messiah as would enable him partially to meet their expectations. But he now recognized that such a plan could hardly be carried through successfully. He therefore elected boldly to disclose the third plan — openly to announce his divinity, acknowledge the truthfulness of Peter’s confession, and directly proclaim to the twelve that he was a Son of God.

157:5.3 (1748.3) For three years Jesus had been proclaiming that he was the “Son of Man,” while for these same three years the apostles had been increasingly insistent that he was the expected Jewish Messiah. He now disclos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and upon the concept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he determined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He had decided to refrain from further efforts to convince them that he was not the Messiah. He now proposed boldly to reveal to them what he *is*, and then to ignore their determination to persist in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제 6 장. 다음 날 오후

예수와 사도들은 다음 날 메신저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길 기다리며 하루를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 집단과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들이 케자리아-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어있었다. 마태는 그런 상황 안에 예수와 그의 형제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그가 했던 것처럼 유다에게 건네 줄 자기 소유의 기금이 아무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메신저들에게 지시를 해 놓았다. 그들에게 그들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는 동안에 유랑하는 사도들과 그들의 주(主)에게 전해 줄 돈을 걷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 날 저녁 무렵에 이 메신저들은 예수의 일행이 데카폴리스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6. THE NEXT AFTERNOON

157:6.1 (1748.4) Jesus and the apostles remained another day at the home of Celsus, waiting for messengers to arrive from David Zebedee with fund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opularity of Jesus with the masses there occurred a great falling off in revenue. When they reached Caesarea-Philippi, the treasury was empty. Matthew was loath to leave Jesus and his brethren at such a time, and he had no ready funds of his own to hand over to Judas as he had so many times done in the past. However, David Zebedee had foreseen this probable diminution of revenue and had accordingly instructed his messengers that, as they made their way through Judea, Samaria, and Galilee, they should act as collectors of money to be forwarded to the exiled

쓰고도 남을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벳세다로부터 도착하였다. 그 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땅이 처분되어 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마태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 기금을 익명으로 유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누구도 예수와 신성에게 적절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들 주(主)의 생애 안에서의 새로운 섭리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가 선생-치유자가 새롭게 이해된 메시아—하느님의 아들—가 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다. 이때 이후로 주(主)의 메시지에 한 가지 새로운 면이 나타났다. 이때로부터 그의 하나의 삶의 이상은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에서의 하나의 관념은 그의 우주에 최극 지혜의 개인화구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오직 그것을 사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며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

이제 예수는 육신을 입은 그의 인간 일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년기로, 이 시기에 그는 인간 존재로서의 자신의 기원, 본성, 운명에 관해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과 점점 전진하는 성인신분에서의 증가하는 자아-의식적 시기로,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사명에 관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와 연관되어 발생한 계시들과 체험들로서 끝이 났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와 일생 중 세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시기를 거쳐 케사리아-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던 시기까지이다. 이 세 번째 시기에 그의 사도들과 측근의 추종자들은 그를 사람의 아들로 알았으며 메시자로 여겼다. 예수와 이 세상에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는 이곳 케사리아-빌립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를 포용한다. 그의 사명활동에서 이 단계는 그의 신성을 인정한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그리고 육신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해의 수고를 포용한다. 네 번째 시기 동안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전체 우주를 위한, 한 중여 아들로서의 최극 사명의 진리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됨을,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비록 희미하게나마, 그의 선택된 대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그렇게 예수와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을 일생을 살아감으로 모범을 보였는데, 그것은 살아가면서 진보하는 기법에 의한 영적 본성의 성장이었

apostles and their Master. And so, by evening of this day, these messengers arrived from Bethsaida bringing funds sufficient to sustain the apostles until their return to embark upon the Decapolis tour. Matthew expected to have money from the sale of his last piece of property in Capernaum by that time, having arranged that these funds should be anonymously turned over to Judas.

157:6.2 (1749.1) Neither Peter nor the other apostles had a very adequate conception of Jesus' divinity. They little realize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 new epoch in their Master's career on earth, the time when the teacher-healer was becoming the newly conceived Messiah — the Son of God. From this time on a new note appeared in the Master's message. Henceforth his one ideal of living wa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le his one idea in teaching was to present to his universe the personification of that supreme wisdom which can only be comprehended by living it. He came that we all might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157:6.3 (1749.2) Jesus now entered upon the fourth and last stage of his human life in the flesh. The first stage was that of his childhood, the years when he was only dimly conscious of his origin, nature, and destiny as a human being. The second stage was the increasingly self-conscious years of youth and advancing manhood, during which he came more clearly to comprehend his divine nature and human mission. This second stage ended with the experiences and revelations associated with his baptism. The third stage of the Master's earth experience extended from the baptism through the years of his ministry as teacher and healer and up to this momentous hour of Peter's confession at Caesarea-Philippi. This third period of his earth life embraced the times when his apostles and his immediate followers knew him as the Son of Man and regarded him as the Messiah. The fourth and last period of his earth career began here at Caesarea-Philippi and extended on to the crucifixion. This stage of his ministry was characterized by his acknowledgment of divinity and embraced the labors of his last year in the flesh. During the fourth period, whil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still regarded him as the Messiah, he became known to the apostles as the Son of God. Peter's confession marked the beginning of the new period of the more complete realization of the truth of his supreme ministry as a bestowal Son on Urantia and for an entire universe, and the recognition of that fact, at least hazily, by his chosen ambassadors.

157:6.4 (1749.3) Thus did Jesus exemplify in his life what he taught in his religion: the growth of the spiritual nature by the technique of living progress.

다. 그는, 후세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혼과 육체의 끊임없는 투쟁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은 양쪽 모두에게 쉽게 승리를 거두며 이러한 지적인 것과 본능적인 싸움의 유익한 화해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치었다.

이 시점으로부터 모든 예수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의 새로운 의의(意義)가 첨가되었다. 케사리아-빌립보 이전에는 예수는 통달한 선생의 자격으로 왕국 복음을 제시하였다. 케사리아-빌립보 후에 그는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적 왕국의 중심이자 둘레인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 한 인간으로서 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예수는 선생으로서, 그 후엔 선생-치유자로서, 추종자들을 영적 왕국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적 기대를 채워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다.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그가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왕국을 세울 길을 모색하였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러한 모험에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는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어 가기로 작정하였으며, 그렇게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자 그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였다.

따라서 예수가 이 날 정원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조차도 예수의 어떤 말들은 낯설게 들렸다. 다른 놀라운 발표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에 그들은 귀 기울였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동료관계를 가지려면 아들관계의 의무를 담당한 후에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이 세상이 너희의 주(主)를 대했던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잘 대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최극 희생이 되려는 너희의 기꺼움으로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로서 자기 생명을 증여하려고 온 것이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들려 올릴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아들의 이 병합된 본성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세월의-불변을 사는 것 이상의 생명을 자질로서 부여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너희에

He did not place emphasis, as did his later followers, upon the incessant struggle between the soul and the body. He rather taught that the spirit was easy victor over both and effective in the profitable reconciliation of much of this intellectual and instinctual warfare.

157:6.5 (1749.4) A new significance attaches to all of Jesus' teachings from this point on. Before Caesarea-Philippi he presented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its master teacher. After Caesarea-Philippi he appeared not merely as a teacher but as the divine representative of the eternal Father, who is the center and circumference of this spiritual kingdom, and it was required that he do all this as a human being, the Son of Man.

157:6.6 (1749.5) Jesus had sincerely endeavored to lead his followers into the spiritual kingdom as a teacher, then as a teacher-healer, but they would not have it so. He well knew that his earth mission could not possibly fulfill the Messianic expectations of the Jewish people; the olden prophets had portrayed a Messiah which he could never be. He sought to establish the Father's kingdom as the Son of Man, but his followers would not go forward in the adventure. Jesus, seeing this, then elected to meet his believers part way and in so doing prepared openly to assume the role of the bestowal Son of God.

157:6.7 (1750.1) Accordingly, the apostles heard much that was new as Jesus talked to them this day in the garden. And some of these pronouncements sounded strange even to them. Among other startling announcements they listened to such as the following:

157:6.8 (1750.2) “From this time on, if any man would have fellowship with us, let him assume the obligations of sonship and follow me. And when I am no more with you, think not that the world will treat you better than it did your Master. If you love me, prepare to prove this affection by your willingness to make the supreme sacrifice.”

157:6.9 (1750.3) “And mark well my word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to, but to minister and to bestow his life as the gift for all. I declare to you that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o are lost.”

157:6.10 (1750.4) “No man in this world now sees the Father except the Son who came forth from the Father. But if the Son be lifted up, he will draw all men to himself, and whosoever believes this truth of the combined nature of the Son shall be endowed with life that is more than age-abiding.”

157:6.11 (1750.5) “We may not yet proclaim openly that the Son of Man is the Son of God, but it has been

게는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내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신비들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대담하게 말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너희들 앞에 물리적 현존으로 서 있기는 해도, 나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언하겠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일로 돌아가야만 한다.”

“사람의 아들이 너희의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에게 하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언들의 진리를 너희의 신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한 진리를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겠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일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내 사명에서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따로 세워 나와 함께 있도록 해 왔으며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내가 너희에게 깨우쳐온 그 일생; 인간의 가슴 안에 내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것, 이 복음을 믿는 모든 혼들의 살아가는 교제인 나의 동료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신앙의-모험인, 그 삶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것의 웅장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이 대담하고 깜짝 놀랄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며, 모두들 아연해졌다. 이어서 그들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주(主)의 말을 토론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의 충분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제 7 장. 안드레의 회의(會議)

그 날 저녁 안드레가 각각의 형제들과 개인적이고 탐구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유익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드레는 다른 연관-동료들과 가졌던 것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다와는 유지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유다가 사도대원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그 자신과 관련하여 한번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유다의 태도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날 밤늦게 다른 사도들이 모두 잠든 후에, 그는 주(主)에게 가서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안드레야, 네가 이 문제로 나를 찾아 오기를 잘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구나. 단지 계속하여 이 사

revealed to you; wherefore do I speak boldly to you concerning these mysteries. Though I stand before you in this physical presence, I came forth from God the Father. Before Abraham was, I am. I did come forth from the Father into this world as you have known me, and I declare to you that I must presently leave this world and return to the work of my Father.”

157:6.12 (1750.6) “And now can your faith comprehend the truth of these declarations in the face of my warning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your fathers as they conceived the Messiah?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Can you believe the truth about me in the face of the fact that, though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heaven have nests, I have not where to lay my head?”

157:6.13 (1750.7) “Nevertheless, I tell you that the Father and I are one.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My Father is working with me in all these things, and he will never leave me alone in my mission, even as I will never forsake you when you presently go forth to proclaim this gospel throughout the world.

157:6.14 (1750.8) “And now have I brought you apart with me and by yourselves for a little while that you may comprehend the glory, and grasp the grandeur, of the life to which I have called you: the faith-adventure of the establishment of my Father’s kingdom in the hearts of mankind, the building of my fellowship of living association with the souls of all who believe this gospel.”

157:6.15 (1750.9) The apostles listened to these bold and startling statements in silence; they were stunned. And they dispersed in small groups to discuss and ponder the Master’s words. They had confess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but they could not grasp the full meaning of what they had been led to do.

7. ANDREW’S CONFERENCE

157:7.1 (1750.10) That evening Andrew took it upon himself to hold a personal and searching conference with each of his brethren, and he had profitable and heartening talks with all of his associates except Judas Iscariot. Andrew had never enjoyed such intimate personal association with Judas as with the other apostles and therefore had not thought it of serious account that Judas never had freely and confidentially related himself to the head of the apostolic corps. But Andrew was now so worried by Judas’s attitude that, later on that night, after all the apostles were fast asleep, he sought out Jesus and presented his cause for anxiety to the Master. Said Jesus: “It is not amiss, Andrew, that you have come to me

도를 전력을 다하여 신뢰하거라.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는 나와 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이상의 말이 안드레가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전부였다. 유대 지방 출신의 이 형제와 갈릴리 출신의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감정이 있어 왔다. 유다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몇 번의 경우에서 주(主)께 들은 책망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예수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을 때 실망하였으며, 예수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도주하였을 때 창피하였으며, 예수가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통하였으며, 그의 주가 힘의 현시활동에 의지하기를 거절하였을 때 당황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다가 난 재정 때문에 우울해졌고 어떤 때는 낙심하였다. 게다가 유다는 군중들의 열렬함이 그리웠다.

다른 사도들 각자도 어떤 면에서 좀 다르긴 해도 비슷하게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였다. 적어도 그들은 유다보다는 더 많이 주(主)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었기 때문이다.

유대 지방 출신인 유다는 최근에 예수가 사도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개인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는 예수의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해 은밀히 암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오류는 다음의 것들이었다: 여러 번에 걸쳐, 예수가 자기 사도들을 그들이 기도하러 보내곤 하였을 때, 유다는 우주의 영적 힘과 진지한 교제에 잠겨있는 대신에 인간의 두려워하는 생각에 빠졌으며, 동시에 복수심을 품는 그의 불행한 성향에 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미묘한 의심을 품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제 예수는 자기 사도들과 함께 헤르몬 산에 가고자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네 번째 위상을 개시하려고 정하였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그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참석해서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 중 몇 명이 또 그렇게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새롭고도 대중을 위한 역할을 시작한다는 권위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있기를 바랐다. 따라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예수가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다: “저 산 너머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마련하고 너희가 준비하도록 하여라. 영이 나에게 그곳에서 땅에서의 나의 일을 완결하기 위한 자질을 부여받도록, 가라고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하여 내 형제들 또한, 나와 함께 가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강한 힘을 얻도록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with this matter, but there is nothing more that we can do; only go on placing the utmost confidence in this apostle. And say nothing to his brethren concerning this talk with me.”

157:7.2 (1751.1) And that was all Andrew could elicit from Jesus. Always had there been some strangeness between this Judean and his Galilean brethren. Judas had been shocked by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severely hurt by the Master's rebukes on several occasions, disappointed when Jesus refused to be made king, humiliated when he fled from the Pharisees, chagrined when he refused to accept the challenge of the Pharisees for a sign, bewildered by the refusal of his Master to resort to manifestations of power, and now, more recently, depressed and sometimes dejected by an empty treasury. And Judas missed the stimulus of the multitudes.

157:7.3 (1751.2) Each of the other apostles was, in some and varying measure, likewise affected by these selfsame trials and tribulations, but they loved Jesus. At least they must have loved the Master more than did Judas, for they went through with him to the bitter end.

157:7.4 (1751.3) Being from Judea, Judas took personal offense at Jesus' recent warning to the apostles to “beware the leaven of the Pharisees”; he was disposed to regard this statement as a veiled reference to himself. But the great mistake of Judas was: Time and again, when Jesus would send his apostles off by themselves to pray, Judas, instead of engaging in sincere communion with the spiritual forces of the universe, indulged in thoughts of human fear while he persisted in the entertainment of subtle doubts about the mission of Jesus as well as giving in to his unfortunate tendency to harbor feelings of revenge.

157:7.5 (1751.4) And now Jesus would take his apostles along with him to Mount Hermon, where he had appointed to inaugurate his fourth phase of earth ministry as the Son of God. Some of them were present at his baptism in the Jordan and had witnessed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s the Son of Man, and he desired that some of them should also be present to hear his authority for the assumption of the new and public role of a Son of God. Accordingly, on the morning of Friday, August 12, Jesus said to the twelve: “Lay in provisions and prepare yourselves for a journey to yonder mountain, where the spirit bids me go to be endowed for the finish of my work on earth. And I would take my brethren along that they may also be strengthened for the trying times of going with me through this experience.”

제 158 편 변모의 산

⇨ 157

유랜시아 책

15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58 편 변모의 산

섹션

소개

제 1 장. 변모

제 2 장. 산에서 내려옴

제 3 장. 변모의 의미

제 4 장. 간질병에 걸린 소년

제 5 장. 예수가 아이를 고치심

제 6 장. 셀수스의 정원에서

제 7 장. 베드로의 항의

제 8 장. 베드로의 집에서

PAPER 158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Transfiguration

2. Coming down the Mountain

3. Meaning of the Transfiguration

4. The Epileptic Boy

5. Jesus Heals the Boy

6. In Celsus' Garden

7. Peter's Protest

8. At Peter's House

소개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헤르몬 산 어귀에 당도한 것은 서기 29년 8월 12일 금요일 해가 지는 무렵이었는데, 그 곳은 주(主)가 유랜시아의 영적 운명을 확립시키고 루시퍼의 반란을 기술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홀로 그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티그라스가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와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곧 닥쳐올 사건들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예수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으며, 그의 사도들이 모두 이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매우 고대하였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그 산의 어귀에서 머무신 것은,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빨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천상의 존재들의 방문에 대한 온전히 체험하기에는 그들의 영적 차원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예수는 자신의 모든 연관-동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마다 늘 자기를 따르게 하였던 세 명에게만 동행을 허락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만

INTRODUCTION

158:0.1 (1752.1) IT WAS near sundown on Friday afternoon, August 12, A.D. 29, when Jesus and his associates reached the foot of Mount Hermon, near the very place where the lad Tiglath once waited while the Master ascended the mountain alone to settle the spiritual destinies of Urantia and technically to terminate the Lucifer rebellion. And here they sojourned for two days in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events so soon to follow.

158:0.2 (1752.2) In a general way, Jesus knew beforehand what was to transpire on the mountain, and he much desired that all his apostles might share this experience. It was to fit them for this revelation of himself that he tarried with them at the foot of the mountain. But they could not attain those spiritual levels which would justify their exposure to the full experience of the visitation of the celestial beings so soon to appear on earth. And since he could not take all of his associates with him, he decided to take only the three who were in the habit of accompanying him on such special vigils. Accordingly, only Peter, James, and

이, 비록 일부분이기기는 하였지만 주(主)와의 이 독특한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John shared even a part of this unique experience with the Master.

제 1 장. 변모

1. THE TRANSFIGURATION

8월 15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세 명의 사도들은 헤르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이 날은 뽕나무 아래 길가에서 베드로가 했던 한낮의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은지 엿새가 지난 때였다.

158:1.1 (1752.3) Early on the morning of Monday, August 15, Jesus and the three apostles began the ascent of Mount Hermon, and this was six days after the memorable noontide confession of Peter by the roadside under the mulberry trees.

예수는 육신에서의 그의 증여의 진보와 함께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의 활동행위를 위하여, 이 체험이 그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관계되고 있음에 따라서, 혼자서만 따로 산을 오르시도록 부름을 받았었다, 이 비상한 사건이 예수와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도록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이방인들의 산 위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58:1.2 (1752.4) Jesus had been summoned to go up on the mountain, apart by himself, for the transaction of important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progress of his bestowal in the flesh as this experience was related to the universe of his own crea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extraordinary event was timed to occur while Jesus and the apostles were in the lands of the gentiles, and that it actually transpired on a mountain of the gentiles.

정오 직전에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점심을 먹는 동안 예수는 세 사도들에게 자신이 세례받은 이후에 곧 가졌었던 요단의 동쪽에 있는 언덕에서의 체험 중에서 어떤 것들을, 그리고 또한 이 쓸쓸한 은신처로 그가 예전에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헤르몬 산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조금 더 이야기하였다.

158:1.3 (1752.5)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about halfway up the mountain, shortly before noon, and while eating lunch, Jesus told the three apostles something of his experience in the hills to the east of Jordan shortly after his baptism and also some more of his experience on Mount Hermon in connection with his former visit to this lonely retreat.

소년 시절에 예수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언덕을 자주 오르셨고 에스드렐론 평원에서 여러 제국들의 군대들이 싸웠던 전투들에 대하여 꿈을 꾸곤 하였다; 지금 그는,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들을 공연하기 위하여 요단의 평원으로 내려가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자질을 부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헤르몬 산을 오르셨던 것이다. 주(主)는 이 날 헤르몬 산에서 고심하였던 것을 포기하고 우주 권역의 자신의 통치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영원한 아들의 지령에 포용된, 신성한 아들 관계의 그의 계층에서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그 계시되어 있는 뜻도 끝까지 전적으로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였다. 8월이었던 이 날에 그의 세 사도들은 그가 모든 우주 권한으로 부여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서의 일생을 완결하도록 그를 홀로 두면서, 천상(天上)의 메신저들이 떠나는 것을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158:1.4 (1752.6) When a boy, Jesus used to ascend the hill near his home and dream of the battles which had been fought by the armies of empires on the plain of Esdraelion; now he ascended Mount Hermon to receive the endowment which was to prepare him to descend upon the plains of the Jordan to enact the closing scenes of the drama of his bestowal on Urantia. The Master could have relinquished the struggle this day on Mount Hermon and returned to his rule of the universe domains, but he not only chos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his order of divine sonship embraced in the mandate of the Eternal Son on Paradise, but he also elected to meet the last and full measure of the present will of his Paradise Father. On this day in August three of his apostles saw him decline to be invested with full universe authority. They looked on in amazement as the celestial messengers departed, leaving him alone to finish out his earth life a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그 사도들의 신앙은 5,000명을 먹일 때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곧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거의 전무(全無)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주(主)가 자신의 신성을 시인한 결과로, 침체되던 열두 사도들의 신앙은 이어지는 몇 주 간에 걸쳐서 다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그 뒤로는 오직 점진적인 쇠퇴만을 체험하게 된다. 그들 신앙의 세 번째 부흥은 주(主)의 부활 후에 이르기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158:1.5 (1753.1) The faith of the apostles was at a high point at the time of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and then it rapidly fell almost to zero. Now, as a result of the Master's admission of his divinity, the lagging faith of the twelve arose in the next few weeks to its highest pitch, only to undergo a progressive decline. The third revival of their faith did not occur until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이 아름다운 오후에 세 시쯤 되어서 예수는 세 사도들을 떠나시면서 “아버지와 그의 메신저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잠시 나 혼자 따로 가겠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 있을 사람의 아들의 증여의 사명 활동에 관한 모든 너희의 체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르신 후에, 예수는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긴 회의를 위해 물러났고, 여섯 시가 되기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염려를 보이자, 말씀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아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 한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들 중의 하나로서 그의 모든 일생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기운을 내어라; 나는 나의 일이 완결되어질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主)에게 질문하였다. “우리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얼마 동안이나 더 이 산에서 머무르게 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알게 될 때까지이다.” 그리고 그들은 빨갇게 달아오른 모닥불 곁에서 루시퍼의 반란에 관한 관련사들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매우 이른 아침부터 여행을 시작하였는지라 사도들의 눈은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다.

세 사도들은 약 반 시간쯤 깊은 잠이 들었다가, 곁에서 탁탁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깨어나,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천상의 빛으로 복장을 한 빛나는 두 존재들과 예수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크게 깜짝 놀라고 경악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과 모습은 하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세 명은 이상한 언어로 대화를 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한 얘기에서,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실수를 일으키는 추측을 하였다; 실제 안에서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이었다.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사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통제자들이 조치하였던 것이다.

세 사도들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성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나, 그 눈부신 광경이 그들의 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홀로서 계신 것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맨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주(主)여,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보는 기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로 여기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장막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혼동된 상태로 인하여, 그리고 그 때에는 이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므로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158:1.6 (1753.2) It was about three o'clock on this beautiful afternoon that Jesus took leave of the three apostles, saying: “I go apart by myself for a season to commune with the Father and his messengers; I bid you tarry here and, while awaiting my return, pray that the Father's will may be done in all your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the further bestowal mission of the Son of Man.” And after saying this to them, Jesus withdrew for a long conference with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not returning until about six o'clock. When Jesus saw their anxiety over his prolonged absence, he said: “Why were you afraid? You well know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wherefore do you doubt when I am not with you? I now declare that the Son of Man has chosen to go through his full life in your midst and as one of you. Be of good cheer; I will not leave you until my work is finished.”

158:1.7 (1753.3) As they partook of their meager evening meal, Peter asked the Master, “How long do we remain on this mountain away from our brethren?” And Jesus answered: “Until you shall see the glory of the Son of Man and know that whatsoever I have declared to you is true.” And they talked over the affairs of the Lucifer rebellion while seated about the glowing embers of their fire until darkness drew on and the apostles' eyes grew heavy, for they had begun their journey very early that morning.

158:1.8 (1753.4) When the three had been fast asleep for about half an hour, they were suddenly awakened by a near-by crackling sound, and much to their amazement and consternation, on looking about them, they beheld Jesus in intimate converse with two brilliant beings clothed in the habiliments of the light of the celestial world. And Jesus' face and form shone with the luminosity of a heavenly light. These three conversed in a strange language, but from certain things said, Peter erroneously conjectured that the beings with Jesus were Moses and Elijah; in reality, they were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The physical controllers had arranged for the apostles to witness this scene because of Jesus' request.

158:1.9 (1753.5) The three apostles were so badly frightened that they were slow in collecting their wits, but Peter, who was first to recover himself, said, as the dazzling vision faded from before them and they observed Jesus standing alone: “Jesus, Master, it is good to have been here. We rejoice to see this glory. We are loath to go back down to the inglorious world. If you are willing, let us abide here, and we will erect three tent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And Peter said this because of his confusion, and because nothing else came into his mind at just that moment.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은빛 구름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 네 사람위에 드리워졌다. 이 때 너무나도 놀란 사도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들은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에 들었던 것과 동일한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명심하라.” 구름이 사라지자, 예수와 그들 셋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대시며 말씀하였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두려워하였다; 자정이 되기 직전에 산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면서 세 사람은 말이 없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제 2 장. 산에서 내려옴

산을 반쯤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가 말을 꺼내면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사람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 사도들은 주(主)께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예수를 해방자, 하느님의 아들로써 믿는 신앙을 아주 최근에 다시 다짐했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막 영광중에 변모되신 주(主)를 보았었는데, 주(主)가 지금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다니!

베드로는 주(主)가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몹시 떨었으며—그런 관념을 떠올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야고보나 요한이 이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대화를 전환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것을 찾지 못하였으며, 마음에 처음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주(主)여, 성서에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가 회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정말로 먼저 와야 하며, 그는 많은 고통을 받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와 있는데,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그제야 세 사도들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계셨다.

예수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자신의 영광을 미리 맛 본 사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한 것은, 지금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지는 존재인 그가, 기적을 베푸는 해방자라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에 어떤 보탬이 되어, 그 관념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

158:1.10 (1753.6) While Peter was yet speaking, a silvery cloud drew near and overshadowed the four of them. The apostles now became greatly frightened, and as they fell down on their faces to worship, they heard a voice, the same that had spoken on the occasion of Jesus' baptism, say: "This is my beloved Son; give heed to him." And when the cloud vanished, again was Jesus alone with the three, and he reached down and touched them, saying: "Arise and be not afraid;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is." But the apostles were truly afraid; they were a silent and thoughtful trio as they made ready to descend the mountain shortly before midnight.

2. COMING DOWN THE MOUNTAIN

158:2.1 (1754.1) For about half the distance down the mountain not a word was spoken. Jesus then began the conversation by remarking: "Make certain that you tell no man, not even your brethre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on this mountain until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The three apostles were shocked and bewildered by the Master's words, "until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They had so recently reaffirmed their faith in him as the Deliverer, the Son of God, and they had just beheld him transfigured in glory before their very eyes, and now he began to talk about "rising from the dead"!

158:2.2 (1754.2) Peter shuddered at the thought of the Master's dying — it was too disagreeable an idea to entertain — and fearing that James or John might ask some question relative to this statement, he thought best to start up a diverting conversation and, not knowing what else to talk about, gave expression to the first thought coming into his mind, which was: "Master, why is it that the scribes say that Elijah must first come before the Messiah shall appear?" And Jesus, knowing that Peter sought to avoid reference to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swered: "Elijah indeed comes first to prepare the way for the Son of Man, who must suffer many things and finally be rejected. But I tell you that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received him not but did to him whatsoever they willed." And then did the three apostles perceive that he referred to John the Baptist as Elijah. Jesus knew that, if they insisted on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then must John be the Elijah of the prophecy.

158:2.3 (1754.3) Jesus enjoined silence about their observation of the foretaste of his postresurrection glory because he did not want to foster the notion that, being now received as the Messiah, he would in any degree fulfill their erroneous concepts of a wonder-working deliverer. Although Peter, James,

한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보기는 하였지만, 주(主)가 부활한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나를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결심에 따라서 나를 받아들이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의지적 경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너희는 많은 실패와 많은 시련을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해왔던 훈련은, 너희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닥칠 이 슬픔조차도, 두루 넘기면서 너희가 승리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수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모 산에 오르셨던 것은, 그들이 일어난 일을 증거 하는 데에 다른 사도들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좀더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러한 드문 특권을 누리기에 영적으로 더 적당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예수는 열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체험을 위해 영적으로 분별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단독으로 친교를 가지고 싶어 홀로 있기를 원할 때마다 그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세 사도들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다.

제 3 장. 변모의 의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변모 산에서 목격한 것은, 그 사건 많은 날에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천상의 구경거리를 얼핏 잠깐 본 것에 불과하였다. 그 변모는 다음과 같이 처하게 된 일 이었다:

1.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의 육신화된 일생의 증여가 충만함을,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어머니-아들이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다. 영원한 아들의 필요조건에 관한 한, 예수는 이제 그들의 충만함에 대한 확증을 받았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확증을 예수께 가져왔다.

2. 필사자 육신의 모습에서의 유란시아 증여의 충만함을 이룸에 따른, 무한한 영의 만족에 대한 증언이었다.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 구원자 별에 있는 미가엘의 직계 연관-동료이며 언제까지나-제시되어 있는 공동작업자는 이때에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하였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명활동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메신저들에 의해 제출된 이 증언을 환영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께서 유란시아 증여가 이제 완결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현존이 단지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를 통하여 목격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and John pondered all this in their minds, they spoke not of it to any man until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158:2.4 (1754.4) As they continued to descend the mountain, Jesus said to them: “You would not receive me as the Son of Man; therefore have I consented to be received in accordance with your settled determination, but, mistake not, the will of my Father must prevail. If you thus choose to follow the inclination of your own wills, you must prepare to suffer many disappointments and experience many trials, but the training which I have given you should suffice to bring you triumphantly through even these sorrows of your own choosing.”

158:2.5 (1754.5) Jesus did not take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up to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because they were in any sense better prepared than the other apostles to witness what happened, or because they were spiritually more fit to enjoy such a rare privilege. Not at all. He well knew that none of the twelve were spiritually qualified for this experience; therefore did he take with him only the three apostles who were assigned to accompany him at those times when he desired to be alone to enjoy solitary communion.

3. MEANING OF THE TRANSFIGURATION

158:3.1 (1755.1) That which Peter, James, and John witnessed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was a fleeting glimpse of a celestial pageant which transpired that eventful day on Mount Hermon. The transfiguration was the occasion of:

158:3.2 (1755.2) 1. The acceptance of the fullness of the bestowal of the incarnated life of Michael on Urantia by the Eternal Mother-Son of Paradise. As far as concerned the requirements of the Eternal Son, Jesus had now received assurance of their fulfillment. And Gabriel brought Jesus that assurance.

158:3.3 (1755.3) 2. The testimony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finite Spirit as to the fullness of the Urantia bestowa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 universe representative of the Infinite Spirit, the immediate associate of Michael on Salvington and his ever-present coworker, on this occasion spoke through the Father Melchizedek.

158:3.4 (1755.4) Jesus welcomed this testimony regarding the success of his earth mission presented by the messengers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but he noted that his Father did not indicate that the Urantia bestowal was finished; only did the unseen presence of the Father bear witness through Jesus' Personalized Adjuster,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give

의 말을 명심하라.” 또한 이 내용은 세 사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말로 들려졌다.

천상의 존재들이 방문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애쓰셨고; 필사자로서의 증거가 자연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예수께 대한 변모의 의의(意義)였다. 반면에 세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主)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위상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방문 이후에, 예수는 이들, 사명활동하는 그의 아들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졌고, 그리고 우주의 일상 관련사들에 관한 그들과 교제하였다.

제 4 장. 간질병에 걸린 소년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이 사도 야영지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아침 식사시간 바로 전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곧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과 오십 명쯤 되는 사람들의 논쟁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리고 마가단 으로부터의 여행 때에 예수와 연관-동료들을 따라왔던 믿는 제자들로, 반씩 갈라져서 아홉 명의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가지로 논쟁하였지만, 주된 논쟁은 예수를 찾아서 전날 도착하였던 티베리아스에 사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사렛의 야고보라는 자인데, 그에게는 열 두 살쯤 되는 외동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심한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 이 소년은 이 신경성 질병 이외에도 그 때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며 해를 끼치는 만관자 중도자들 중의 하나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 어린아이는 간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귀신들려 있었던 것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이었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아들을 예수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 위하여 거의 두 주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빌립의 영지 서쪽 경계선을 따라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세 사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으므로 이날 정오까지도 그 무리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홉 사도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찾기 위해 거의 사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몹시 놀라고 심히 동요되었다. 이 무리가 도착하였을 때 아홉 사도들은,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유혹—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누가 클 것이냐를 토론하는 것—에 굴복하였었다; 그들은 사도들 각자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하기에 바빴었다. 그

heed to him.” And this was spoken in words to be heard also by the three apostles.

158:3.5 (1755.5) After this celestial visitation Jesus sought to know his Father's will and decided to pursue the mortal bestowal to its natural end. This was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figuration to Jesus. To the three apostles it was an event marking the entrance of the Master upon the final phase of his earth career as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158:3.6 (1755.6) After the formal visitation of Gabriel and the Father Melchizedek, Jesus held informal converse with these, his Sons of ministry, and communed with them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universe.

4. THE EPILEPTIC BOY

158:4.1 (1755.7) It was shortly before breakfast time on this Tuesday morning when Jesus and his companions arrived at the apostolic camp. As they drew near, they discerned a considerable crowd gathered around the apostles and soon began to hear the loud words of argument and disputation of this group of about fifty persons, embracing the nine apostles and a gathering equally divided between Jerusalem scribes and believing disciples who had tracked Jesus and his associates in their journey from Magadan.

158:4.2 (1755.8) Although the crowd engaged in numerous arguments, the chief controversy was about a certain citizen of Tiberias who had arrived the preceding day in quest of Jesus. This man, James of Safed, had a son about fourteen years old, an only child, who was severely afflicted with epilepsy. In addition to this nervous malady this lad had become possessed by one of those wandering, mischievous, and rebellious midwayers who were then present on earth and uncontrolled, so that the youth was both epileptic and demon-possessed.

158:4.3 (1755.9) For almost two weeks this anxious father, a minor official of Herod Antipas, had wandered about through the western borders of Philip's domains, seeking Jesus that he might entreat him to cure this afflicted son. And he did not catch up with the apostolic party until about noon of this day when Jesus was up on the mountain with the three apostles.

158:4.4 (1756.1) The nine apostles were much surprised and considerably perturbed when this man, accompanied by almost forty other persons who were looking for Jesus, suddenly came upon them.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is group the nine apostles, at least the majority of them, had succumbed to their old temptation — that of discussing who should be greatest in the coming

들은 다만 메시아의 물질적인 사명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신봉하였던 관념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진정한 해방자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용납하였고—적어도 그의 신성의 사실을 주(主)가 인정하였으므로—주(主)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동안에,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희망과 포부에 대한 얘기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런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렛의 야고보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를 찾아 그들에게 왔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안드레가 이 부자(父子)를 환영하기 위하여 다가와서 말하기를,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렛의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친절한 선생님, 나는 당신의 주(主)를 찾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심한 발작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받아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 하였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계속하여 설명하였다.

사도들이 듣고 있을 때, 시몬 켈로메와 가롯 유다가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으니; 당신들은 주(主)가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은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는 해방자이시며 그리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안드레와 도마는 이때까지도 한 쪽에서 의논을 하고 있었다. 나다니엘과 다른 사도들은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다; 무례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시몬과 유다의 갑작스러운 대답성에 모두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그 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다; “만일 당신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이 속박으로부터 내 아이를 구원해 줄 말씀을 말해주실 것을 내가 기원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앞으로 나서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명령하였다. “이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나 그 아이는 더욱 격렬하게 발작할 뿐이었고, 서기관들은 비웃음으로 사도들을 조롱하였으며, 실망한 신자들은 쌀쌀한 비평가들의 조롱을 당했다.

안드레는 이 무분별한 노력과 참담한 실패에 깊이 통분하였다. 그는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옆으로 불렀다. 잠시 동안 묵상한 후에, 실패하였다는 상처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들 모두에게 굴욕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드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두 번째의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실패만이 그의 노력에 대답할 뿐이었다. 안드레는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하루 더 그들과 머물든지 아니면 예수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유하면서 말했다; “아마 이러한 종류는 주(主)께서 직접 명하여야만 쫓겨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기가 넘치고 황홀경에 빠진 베드

kingdom; they were busily arguing about the probable positions which would be assigned the individual apostles. They simply could not free themselves entirely from the long-cherished idea of the material mission of the Messiah. And now that Jesus himself had accepted their confession that he was indeed the Deliverer — at least he had admitted the fact of his divinity — what was more natural than that, during this period of separation from the Master, they should fall to talking about those hopes and ambitions which were uppermost in their hearts. And they were engaged in these discussions when James of Safed and his fellow seekers after Jesus came upon them.

158:4.5 (1756.2) Andrew stepped up to greet this father and his son, saying, “Whom do you seek?” Said James: “My good man, I search for your Master. I seek healing for my afflicted son. I would have Jesus cast out this devil that possesses my child.” And then the father proceeded to relate to the apostles how his son was so afflicted that he had many times almost lost his life as a result of these malignant seizures.

158:4.6 (1756.3) As the apostles listened, Simon Zelotes and Judas Iscariot stepped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saying: “We can heal him; you need not wait for the Master’s return. We are ambassadors of the kingdom; no longer do we hold these things in secret. Jesus is the Deliverer, and the keys of the kingdom have been delivered to us.” By this time Andrew and Thomas were in consultation at one side. Nathaniel and the others looked on in amazement; they were all aghast at the sudden boldness, if not presumption, of Simon and Judas. Then said the father: “If it has been given you to do these works, I pray that you will speak those words which will deliver my child from this bondage.” Then Simon stepped forward and, placing his hand on the head of the child, looked directly into his eyes and commanded: “Come out of him, you unclean spirit; in the name of Jesus obey me.” But the lad had only a more violent fit, while the scribes mocked the apostles in derision, and the disappointed believers suffered the taunts of these unfriendly critics.

158:4.7 (1756.4) Andrew was deeply chagrined at this ill-advised effort and its dismal failure. He called the apostles aside for conference and prayer. After this season of meditation, feeling keenly the sting of their defeat and sensing the humiliation resting upon all of them, Andrew sought, in a second attempt, to cast out the demon, but only failure crowned his efforts. Andrew frankly confessed defeat and requested the father to remain with them overnight or until Jesus’ return, saying: “Perhaps this sort goes not out except by the Master’s personal command.”

158:4.8 (1756.5) And so, while Jesus was descending

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의 아홉 형제들도 그들만큼 혼돈과 기가 꺾인 굴욕감 속에서 잠이 달아나 있었다. 그들은 풀이 죽고 수그러든 무리였다. 그러나 사렛의 야고보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예수가 언제쯤 돌아오실 것이라는 아무런 견해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주(主)가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였다.

제 5 장. 예수가 아이를 고치심

예수가 가까이 오시자 아홉 사도들은 더욱 안심이 되어 그를 환영하였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얼굴에 나타난 활력과 보기 드문 열정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예수와 세 형제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달려 나갔다. 그들이 인사를 하는 동안 무리들이 다가왔으며, 예수가 물었다. “우리가 가까이 올 때에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을 하였느냐?” 그러나 당황하고 낙심한 사도들이 주(主)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고통받는 아이를 염려하는 그 아버지가 나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主)여, 저에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품으며, 발작할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자주 아이를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때에는 아이를 물에 던져 넣기도 하며 심지어는 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를 한참 갈며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기진맥진해 버립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다; 아이의 어머니와 저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당신을 찾다가 어제 오후 경에 당신의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主)여, 이제는 당신께서 저희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둘러보시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명하였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의 앞에서 서 있는 모두에게 말씀했다; “오 신앙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신앙의 성과가 의심하는 불신의 명령에서는 나올 수 없음을 이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당황하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 오라.” 사렛의 야고보가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려오자 물었다.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그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는 심한 공격을 당하여 무리 가운데에 쓰러졌으며, 이를 깔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격렬한 발작이 끝나자 그들 앞에서 마치 죽은 아이처럼 눕게 되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다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主)께 애원하며 말했다; “만일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제

the mountain with the exuberant and ecstatic Peter, James, and John, their nine brethren likewise were sleepless in their confusion and downcast humiliation. They were a dejected and chastened group. But James of Safed would not give up. Although they could give him no idea as to when Jesus might return, he decided to stay on until the Master came back.

5. JESUS HEALS THE BOY

158:5.1 (1757.1) As Jesus drew near, the nine apostles were more than relieved to welcome him, and they were greatly encouraged to behold the good cheer and unusual enthusiasm which marked the countenances of Peter, James, and John. They all rushed forward to greet Jesus and their three brethren. As they exchanged greetings, the crowd came up, and Jesus asked, “What were you disputing about as we drew near?” But before the disconcerted and humiliated apostles could reply to the Master’s question, the anxious father of the afflicted lad stepped forward and, kneeling at Jesus’ feet, said: “Master, I have a son, an only child, who i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Not only does he cry out in terror, foam at the mouth, and fall like a dead person at the time of seizure, but oftentimes this evil spirit which possesses him rends him in convulsions and sometimes has cast him into the water and even into the fire. With much grinding of teeth and as a result of many bruises, my child wastes away. His life is worse than death; his mother and I are of a sad heart and a broken spirit. About noon yesterday, seeking for you, I caught up with your disciples, and while we were waiting, your apostles sought to cast out this demon, but they could not do it. And now, Master, will you do this for us, will you heal my son?”

158:5.2 (1757.2) When Jesus had listened to this recital, he touched the kneeling father and bade him rise while he gave the near-by apostles a searching survey. Then said Jesus to all those who stood before him: “O faithless and perverse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ere you learn that the works of faith come not forth at the bidding of doubting unbelief?” And then, pointing to the bewildered father, Jesus said, “Bring hither your son.” And when James had brought the lad before Jesus, he asked, “How long has the boy been afflicted in this way?” The father answered, “Since he was a very young child.” And as they talked, the youth was seized with a violent attack and fell in their midst, gnashing his teeth and foaming at the mouth. After a succession of violent convulsions he lay there before them as one dead. Now did the father again kneel at Jesus’ feet while he implored the Master, saying: “If you can cure him, I beseech you to have compassion on us and deliver us from

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자, 그 아버지의 근심하는 얼굴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네 신앙의 진실함과 한계를 의심해 보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 때 사렛의 야고보는 신앙과 의심이 뒤섞여서 오랫동안 기억될만한 말을 하였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 다가가서서 그 아이를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했다;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에 경의를 표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 내 아들이, 일어나라! 불순종의 영아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 주면서 말씀했다; “네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네 혼의 갈망을 들어주셨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의 적들까지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변모의 광경과 체험으로 영적 황홀경을 맞본 지 얼마 되지 않는 세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빨리 동료 사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광경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로 환상에서 깨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왕국의 열 두 대사들 모두에게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 체험 안에서 환희와 굴욕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였다.

이것은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질병의 이중 고통을 진정으로 치료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시간부터 영구적으로 낫게 되었다. 야고보가 회복된 아들과 길을 떠나자, 예수가 말씀했다; “이제 우리도 케사리아-빌립보로 가자; 즉시 준비하라.” 남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였으며 무리들이 뒤를 따랐다.

제 6 장. 셀수스의 정원에서

그들은 셀수스와 함께 밤을 보내었고, 저녁에는 정원에 머물렀으며, 식사와 휴식이 끝나자 열 두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고, 도마가 말하였다. “주(主)여, 뒤에 남아있던 우리는 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과 함께 한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크게 기운 나게 했는지 여전히 모른 채로 있습니다. 보건대 산에서 일어났던 저들의 일들이 지금은 밝힐 수 없는 것 같으니, 당신께서 우리의 실패에 관한 말씀과 이 일로 인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는 도마에게 대답하여 말씀했다; “네 형제들이 산 위에서 들은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너무도 어리석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너희의 주(主)와 그의 동행자들,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그리고 신성한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더욱 풍성한 지혜의 자질을 청하기

this affliction.” And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looked down into the father’s anxious face, saying: “Question not my Father’s power of love, only the sincerity and reach of your faith.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really believes.” And then James of Safed spoke those long-to-be-remembered words of commingled faith and doubt, “Lord, I believe. I pray you help my unbelief.”

158:5.3 (1757.3)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he stepped forward and, taking the lad by the hand, said: “I will do this in accordance with my Father’s will and in honor of living faith. My son, arise! Come out of him, disobedient spirit, and go not back into him.” And placing the hand of the lad in the hand of the father, Jesus said: “Go your way. The Father has granted the desire of your soul.” And all who were present, even the enemies of Jesus, were astonished at what they saw.

158:5.4 (1757.4) It was indeed a disillusionment for the three apostles who had so recently enjoyed the spiritual ecstasy of the scenes and experiences of the transfiguration, so soon to return to this scene of the defeat and discomfiture of their fellow apostles. But it was ever so with these twelve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ey never failed to alternate between exaltation and humiliation in their life experiences.

158:5.5 (1758.1) This was a true healing of a double affliction, a physical ailment and a spirit malady. And the lad was permanently cured from that hour. When James had departed with his restored son, Jesus said: “We go now to Caesarea-Philippi; make ready at once.” And they were a quiet group as they journeyed southward while the crowd followed on behind.

6. IN CELSUS’ GARDEN

158:6.1 (1758.2) They remained overnight with Celsus, and that evening in the garden, after they had eaten and rested, the twelve gathered about Jesus, and Thomas said: “Master, while we who tarried behind still remain ignorant of what transpired up on the mountain, and which so greatly cheered our brethren who were with you, we crave to have you talk with us concerning our defeat and instruct us in these matters, seeing that those things which happened on the mountain cannot be disclosed at this time.”

158:6.2 (1758.3) And Jesus answered Thomas, saying: “Everything which your brethren heard on the mountain shall be revealed to you in due season. But I will now show you the cause of your defeat in that which you so unwisely attempted. While your Master and his companions, your brethren, ascended yonder mountain yesterday to seek for a larger knowledge of the Father’s will

위하여 어제 저쪽 산에 올라간 동안에, 남아서 이곳을 지키면서 영적 통찰력의 마음을 체득하기를 분투하고, 아버지의 뜻이 좀 더 충분하게 계시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너희들이, 너희 명령에 따르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그 대신, 너희는 유혹에 양보하면서, 하늘의 왕국—너희가 깊은 생각에서 끈질기게 고집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왕국—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너희의 오래된 악한 경향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나의 왕국이 이 세계에 있지 않다고 반복하여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수하는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너희 신앙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자마자, 세속적인 승진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슬며시 너희에게 임하였고,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클 것인지에 대하여 너희끼리 의논하게 되었지만, 그 왕국에 대하여 너희가 아무리 상상을 계속할지라도, 그러한 왕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적 형제신분의 왕국에서는, 큰 자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게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적 위대성은 하나님과-같은이라는 사랑을 납득함에 있는 것이지, 자아의 고취를 위한 물질적 힘의 행사를 즐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도하였지만 완벽하게 실패하였던 그것에서, 너희의 목적은 순수하지 않았다. 너희의 동기는 신성하지 않았다. 너희의 이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열정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과정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너희의 달성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확립된 자연 현상의 과정을 너희가 시간-단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영적 힘이 없이는 너희가 영적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일 때 일지라도 세 번째의 근본적인 인간 요소,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개인적 체험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도 행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항상 물질적인 현시활동이 있어야만 왕국의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매혹을 가질 수 있느냐? 신비한 일들을 너희 앞에 보여 주지 않으면 내 임무에서의 영 의의(意義)를 깨달을 수가 없느냐? 언제가 되어야 너희는 모든 물질적 현시활동의 외향적 출현과 관계없이 왕국의 보다 높은 영적 실체들에게 충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열 두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덧붙였다: “자 이제는 가서 쉬어라. 날이 새면 마가단으로 돌아가서 데카폴리스 지방의 마을과 도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곳에서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체험의 결론으로, 내가 산에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너희 각자에게 선언하겠으니, 이 말을 너희 가슴 깊은 곳에 잘 간직해 두어라: 사람의 아들은 이제 중여의 마지막 위상에 들어간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내가 넘겨 질 때에 너희 신앙과 헌신

and to ask for a richer endowment of wisdom effectively to do that divine will, you who remained on watch here with instructions to strive to acquire the mind of spiritual insight and to pray with us for a fuller revelation of the Father's will, failed to exercise the faith at your command but, instead, yielded to the temptation and fell into your old evil tendencies to seek for yourselves preferred places in the kingdom of heaven — the material and temporal kingdom which you persist in contemplating. And you cling to these erroneous concepts in spite of the reiterated declaration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158:6.3 (1758.4) “No sooner does your faith grasp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than your selfish desire for worldly preferment creeps back upon you, and you fall to discussing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ould b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 kingdom which, as you persist in conceiving it, does not exist, nor ever shall. Have not I told you that he who would be greatest in the kingdom of my Father's spiritual brotherhood must become little in his own eyes and thus become the server of his brethren? Spiritual greatness consists in an understanding love that is Godlike and not in an enjoyment of the exercise of material power for the exaltation of self. In what you attempted, in which you so completely failed, your purpose was not pure. Your motive was not divine. Your ideal was not spiritual. Your ambition was not altruistic. Your procedure was not based on love, and your goal of attainment was not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58:6.4 (1758.5)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learn that you cannot time-shorten the course of established natural phenomena except when such things are in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nor can you do spiritual work in the absence of spiritual power. And you can do neither of these, even when their potential is present, without the existence of that third and essential human factor,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possession of living faith. Must you always have material manifestations as an attraction for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Can you not grasp the spirit significance of my mission without the visible exhibition of unusual works? When can you be depended upon to adhere to the higher and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regardless of the outward appearance of all material manifestations?”

158:6.5 (1759.1)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twelve, he added: “And now go to your rest, for on the morrow we return to Magadan and there take counsel concerning our mission to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And in the conclusion of this day's experience, let me declare to each of you that which I spoke to your brethren on the mountain, and let these words find a deep lodgment in your hearts: The Son of Man now enters upon the last phase of the bestowal. We

에 대한 크고 최종적인 시험이 얼마 안 있어서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꼭 기억하라: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지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물러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당황하였다;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主)가 말씀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묻기를 두려워하였지만, 부활에 뒤따라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상기해 보았다.

제 7 장. 베드로의 항의

수요일 아침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벳새다-줄리아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가단 공원을 향하여 케자리아-빌립보를 출발하였다. 사도들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둔감한 알페오 쌍둥이들까지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메롬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쿠스 길에 다다르자, 예수는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쿠스 길을 이용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지도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사도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서 그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쪽 요단 길로 내려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를 쫓아오고 있는 비난자들과 군중들을 피하여 오로지 사도들과만 이 날을 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여 여행하고 있었으며,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그늘 아래에 멈추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시간이었다. 식사를 다 마치자, 안드레가 예수께 질문하였다. “주(主)여, 형제들이 당신의 난해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를 떠나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안드레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여,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그 중여의 삶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부득이 사실대로 드러내기 시작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속하여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고집하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만 한다는 관념을 버리려하지 않으나;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우두머리 사제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are about to begin those labors which shall presently lead to the great and final testing of your faith and devotion when I sha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men who seek my destruction. And remember what I am saying to you: The Son of Man will be put to death, but he shall rise again.”

158:6.6 (1759.2) They retired for the night, sorrowful. They were bewildered; they could not comprehend these words. And while they were afraid to ask aught concerning what he had said, they did recall all of it subsequent to his resurrection.

7. PETER'S PROTEST

158:7.1 (1759.3) Early this Wednesday morning Jesus and the twelve departed from Caesarea-Philippi for Magadan Park near Bethsaida-Julias. The apostles had slept very little that night, so they were up early and ready to go. Even the stolid Alpheus twins had been shocked by this talk about the death of Jesus. As they journeyed south, just beyond the Waters of Merom they came to the Damascus road, and desiring to avoid the scribes and others whom Jesus knew would presently be coming along after them, he directed that they go on to Capernaum by the Damascus road which passes through Galilee. And he did this because he knew that those who followed after him would go on down over the east Jordan road since they reckoned that Jesus and the apostles would fear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Herod Antipas. Jesus sought to elude his critics and the crowd which followed him that he might be alone with his apostles this day.

158:7.2 (1759.4) They traveled on through Galilee until well past the time for their lunch, when they stopped in the shade to refresh themselves. And after they had partaken of food, Andrew, speaking to Jesus, said: “Master, my brethren do not comprehend your deep sayings. We have come fully to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God, and now we hear these strange words about leaving us, about dying. We do not understand your teaching. Are you speaking to us in parables? We pray you to speak to us directly and in undisguised form.”

158:7.3 (1759.5) In answer to Andrew, Jesus said: “My brethren, it is because you have confessed that I am the Son of God that I am constrained to begin to unfold to you the truth about the end of the bestowal of the Son of Man on earth. You insist on clinging to the belief that I am the Messiah, and you will not abandon the idea that the Messiah must sit upon a throne in Jerusalem; wherefore do I persist in telling you that the Son of Man must presently go to Jerusalem, suffer many things, be rejected by the scribes, the elders, and the chief

이 모든 일 이후에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 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비유가 아니며; 그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이 사건들에 너희가 잘 준비되도록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뛰어 나아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주(主)여, 주(主)와 논쟁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주(主)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지만; 주(主)의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들 속에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이 세상 중역을 끝마치려는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미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비록 그의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친구들이지만, 그를 단념시키려는 제안들을 허용하는 위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였다: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적, 유혹하는 자의 영으로 느껴진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네가 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편에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네가 나에게 대한 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예수의 찌르는 듯한 꾸지람의 맨 처음 충격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후,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主)는 덧붙여 말씀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고, 매일 매일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 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 죄 많고 위선적인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천상의 우리들의 현존 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영광 안에서 나타날 때에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앞에서 있는 너희들 중 여럿은 힘과 함께 오는 이 하느님의 왕국을 보기까지는 죽음을 맞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걸어야만 할 고통스럽고 상충되는 그 길에 대하여 열 두 사도들에게 꾸밈없이 설명하였다.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보장하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끈질기게 꿈꾸던 이들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말씀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용기 있는 이 호소로 감동이 되었으며, 그를 저 버릴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는 그들이 홀로 갈등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오직 용기를 가지고 따라오기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열 두 사도들은 예수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

priests, and after all this be killed and raised from the dead. And I speak not a parable to you; I speak the truth to you that you may be prepared for these events when they suddenly come upon us.” And while he was yet speaking, Simon Peter, rushing impetuously toward him, laid his hand upon the Master’s shoulder and said: “Master, be it far from us to contend with you, but I declare that these things shall never happen to you.”

158:7.4 (1760.1) Peter spoke thus because he loved Jesus; but the Master’s human nature recognized in these words of well-meant affection the subtle suggestion of temptation that he change his policy of pursuing to the end his earth bestowal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his Paradise Father. And it was because he detected the danger of permitting the suggestions of even his affectionate and loyal friends to dissuade him, that he turned upon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saying: “Get you behind me. You savor of the spirit of the adversary, the tempter. When you talk in this manner, you are not on my side but rather on the side of our enemy. In this way do you make your love for me a stumbling block to my doing the Father’s will. Mind not the ways of men but rather the will of God.”

158:7.5 (1760.2) After they had recovered from the first shock of Jesus’ stinging rebuke, and before they resumed their journey, the Master spoke further: “If any man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isregard himself, take up his responsibilities daily, and follow me. For whosoever would save his life selfishly, shall lose it, but whos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shall save it.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What would a man give in exchange for eternal life? Be not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sinful and hypocritical generation, even as I will not be ashamed to acknowledge you when in glory I appear before my Father in the presence of all the celestial hosts. Nevertheless, many of you now standing before me shall not taste death till you see this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158:7.6 (1760.3) And thus did Jesus make plain to the twelve the painful and conflicting path which they must tread if they would follow him. What a shock these words were to these Galilean fishermen who persisted in dreaming of an earthly kingdom with positions of honor for themselves! But their loyal hearts were stirred by this courageous appeal, and not one of them was minded to forsake him. Jesus was not sending them alone into the conflict; he was leading them. He asked only that they bravely follow.

158:7.7 (1760.4) Slowly the twelve were grasping the idea that Jesus was telling them something about

는 관념을 서서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의 죽음에 대하여는 어렵듯이 이해할 뿐이었으며,
반면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지 못하였다.
세월이 지나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변
모되신 산에서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좀 더 납득하게 되었다.

주(主)께서 열 두 사도들과 같이하였던 전 기
간동안, 이번에 베드로와 그들 모두에게 실시된
것처럼, 눈을 번쩍이시면서 빠른 어투로 꾸지람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단지 몇 번뿐이었다.
예수는 그들의 인간 결점에는 항상 참았지만, 그
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의 생애의 나머지에 관하
여,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암암리에 실행하려는 계
획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글자 그대로 대경실색하
였다; 매우 놀랐고 무서웠다. 그들은 어떻게 애통
함을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서 찢찢 매었다. 주(主)
께서 무엇을 건디시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체험에 주(主)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
은 서서히 깨닫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시절의
절박하게 다가오는 비극에 대한 이들 초기 암시가
있는 후 훨씬 뒤까지도,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이
들 사건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였다.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침묵 속에서 마가단
공원에 있는 야영지를 향하여 가버나움의 길을 따
라서 출발하였다. 오후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와 한 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편, 안드레만이 주
(主)와 이야기를 하였다.

제 8 장. 베드로의 집에서

황혼 무렵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서 곧바
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였다. 다윗 세베데
가 그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준
비를 하는 동안,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시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너희가 함께 걸어오면서, 너
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나누었
느냐?” 사도들은 그들 중에 여럿이, 앞으로 이루어
질 왕국에서 그들이 무슨 지위를 가질 것인가; 누
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헤르몬 산
에서부터 시작하였던 똑같은 토론을 계속하였었
기 때문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그
날 사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
를 아시고, 베드로의 어린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손짓으로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 앉히시고 말씀
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더욱 낮아지
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서 거의 진보하지 못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작은
아이처럼 되는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를 그렇게 받아
들이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왕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the possibility of his dying. They only vaguely
comprehended what he said about his death, while
his statement about rising from the dead utterly
failed to register in their minds. As the days
passed, Peter, James, and John, recalling their
experience upon the mount of the transfiguration,
arrived at a fuller understanding of certain of these
matters.

158:7.8 (1760.5) In all the association of the twelve
with their Master, only a few times did they see
that flashing eye and hear such swift words of
rebuke as were administere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m on this occasion. Jesus had always been
patient with their human shortcomings, but not so
when faced by an impending threat against the
program of implicitly carrying out his Father's will
regarding the remainder of his earth career. The
apostles were literally stunned; they were amazed
and horrified. They could not find words to express
their sorrow. Slowly they began to realize what the
Master must endure, and that they must go
through these experiences with him, but they did
not awaken to the reality of these coming events
until long after these early hints of the impending
tragedy of his latter days.

158:7.9 (1761.1) In silence Jesus and the twelve
started for their camp at Magadan Park, going by
way of Capernaum. As the afternoon wore on,
though they did not converse with Jesus, they
talked much among themselves while Andrew
talked with the Master.

8. AT PETER'S HOUSE

158:8.1 (1761.2) Entering Capernaum at twilight, they
went by unfrequented thoroughfares directly to the
home of Simon Peter for their evening meal.
While David Zebedee made ready to take them
across the lake, they lingered at Simon's house,
and Jesus, looking up at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sked: "As you walked along together
this afternoon, what was it that you talked about so
earnestly among yourselves?" The apostles held
their peace because many of them had continued
the discussion begun at Mount Hermon as to what
positions they were to have in the coming
kingdom; who should be the greatest, and so on.
Jesus, knowing what it was that occupied their
thoughts that day, beckoned to one of Peter's little
ones and, setting the child down among them,
said: "Verily, verily, I say to you, except you turn
about and become more like this child, you will
make little progress in the kingdom of heaven.
Whosoever shall humble himself and become as
this little one, the same shall becom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so receives such
a little one receives me. And they who receive me
receive also Him who sent me. If you would be
first in the kingdom, seek to minister these good

한다면, 육신으로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이 선한 진리들을 베풀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넘어지도록 하면, 뱃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만일 네 손으로 한 것들이나, 또는 네 눈으로 본 것들이 왕국의 진보에서 실족케 한다면, 이들 매달렸던 우상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는 이들 우상에 매달리고 그리고 스스로 왕국을 가로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생에서 사랑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사는 무리들로서의 얼굴을 지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은 배를 타고 마가단 쪽으로 항해하여 건너갔다.

truths to your brethren in the flesh. But whos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and he were cast into the sea. If the things you do with your hands, or the things you see with your eyes give offense in the progress of the kingdom, sacrifice these cherished idols, for it is better to enter the kingdom minus many of the beloved things of life rather than to cling to these idols and find yourself shut out of the kingdom. But most of all, see that you despise not one of these little ones, for their angels do always behold the faces of the heavenly hosts."

158:8.2 (1761.3)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y entered the boat and sailed across to Magadan.

제 159 편 데카폴리스 전도 여행

⇨ 158

유랜시아 책

160 ⇨

부 IV. 예수와 생애와 가르침

제 159 편 데카폴리스 전도 여행

섹션

소개

제 1 장. 용서에 대한 교훈

제 2 장. 이상한 설교자

제 3 장. 교사들과 신자들을 위한 지침

제 4 장. 나다니엘과의 대화

제 5 장. 예수의 종교에서의 적극적 본성

제 6 장. 마가단으로 돌아감

PAPER 159

THE DECAPOLIS TOU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Sermon on Forgiveness

2. The Strange Preacher

3. Instruction for Teachers and Believers

4. The Talk with Nathaniel

5. The Positive Nature of Jesus' Religion

6. The Return to Magadan

소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마가단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의 백 명 정도 되는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 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데카폴리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가르치며 전파하는 전도 여행을 즉시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8월 18일, 목요일인 이 날 아침에, 주(主)는 따르는 무리들을 모두 불러서 사도들마다 열 두 전도자들 중 하나씩과 짝을 짓고, 나머지 전도자들도 열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데카폴리스의 도시들과 마을들에 나가 사명활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여자 대원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남아 있도록 지도하였다. 예수는 이 여행에 4 주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9월 16일 금요일까지 마가단으로 모두 돌아오도록 지도하였다. 예수는 이 기간 동안에 종종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달이 지나는 동안, 열 두 집단은 게라사, 가말라, 히포, 자폰, 가다라, 아빌라, 에드레이, 필라델피아, 헤스본, 디움, 스키토폴리스, 그리고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 수고를 하였다. 이 여행 동안에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다른 비상한 사건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INTRODUCTION

159:0.1 (1762.1) WHEN Jesus and the twelve arrived at Magadan Park, they found awaiting them a group of almost one hundred evangelists and disciples, including the women's corps, and they were ready immediately to begin the teaching and preaching tour of the cities of the Decapolis.

159:0.2 (1762.2) On this Thursday morning, August 18, the Master called his followers together and directed that each of the apostles should associate himself with one of the twelve evangelists, and that with others of the evangelists they should go out in twelve groups to labor in the cities and villages of the Decapolis. The women's corps and others of the disciples he directed to remain with him. Jesus allotted four weeks to this tour, instructing his followers to return to Magadan not later than Friday, September 16. He promised to visit them often during this time. In the course of this month these twelve groups labored in Gerasa, Gamala, Hippos, Zaphon, Gadara, Abila, Edrei, Philadelphia, Heshbon, Dium, Scythopolis, and many other cities. Throughout this tour no miracles of healing or other extraordinary events occurred.

제 1 장. 용서에 대한 교훈

예수는 어느 날 저녁 히포에서,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주(主)께서 말씀했다:

“만일 어느 인정 많은 사람이 일백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즉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그가 선한 목자라면, 그가 발견할 때까지 그 잃은 양을 계속 탐색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둘러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청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쁨을 향유합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길을 잃도록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너희 종교에서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지도 모른다; 왕국복음 안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엄중하게 회개의 생각을 가지기도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내려고 나아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니, 너희들도 마땅히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만일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서 재치와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결함을 지적해 주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와 그 형제 둘이서만 하도록 하라. 만일 그 형제가 네 말을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실수를 행하면, 네가 다시 가되, 모두에게 친구인 둘 혹은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네 증언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하고 그리고 너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제를 네가 자비롭고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만일 그가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회중(會衆)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도 무방하고, 만일 그가 모든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그들이 현명한 생각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은 왕국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라. 그리고 한편, 너희가 마치 네 동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라도 한 것처럼 행하거나, 죄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마치 하늘 무리 감독자들의 특권을 빼앗는 듯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나, 그러나 이 세상 왕국 안에서의 현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성한 판결에 너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그들이 형제신분의 현세적 복지에 관계하도록 행동하는 문제는 네가 결정해도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형제신분의 단련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너희가 땅에서 판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늘에서 인지(認知)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개별존재의 영원한 숙명을 결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집단의 행위에 관하여 너희가 규율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중에 두 세 사람

1. THE SERMON ON FORGIVENESS

159:1.1 (1762:3) One evening at Hippos, in answer to a disciple's question, Jesus taught the lesson on forgiveness. Said the Master:

159:1.2 (1762:4) “If a kindhearted man has a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goes astray, does he not immediately leave the ninety and nine and go out in search of the one that has gone astray? And if he is a good shepherd, will he not keep up his quest fo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then, when the shepherd has found his lost sheep, he lays it over his shoulder and, going home rejoicing, calls to his friends and neighbors,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I declare that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 and 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Even so,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go astray, much less that they should perish. In your religion God may receive repentant sinn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Father goes forth to find them even before they have seriously thought of repentance.

159:1.3 (1762:5) “The Father in heaven loves his children, and therefore should you learn to love one another; the Father in heaven forgives you your sins; therefore should you learn to forgive one another.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to him and with tact and patience show him his fault. And do all this between you and him alone. If he will listen to you, then have you won your brother. But if your brother will not hear you, if he persists in the error of his way, go again to him, taking with you one or two mutual friends that you may thus have two or even three witnesses to confirm your testimony and establish the fact that you have dealt justly and mercifully with your offending brother. Now if he refuses to hear your brethren, you may tell the whole story to the congregation, and then, if he refuses to hear the brotherhood, let them take such action as they deem wise; let such an unruly member become an outcast from the kingdom. While you cannot pretend to sit in judgment on the souls of your fellows, and while you may not forgive sins or otherwise presume to usurp the prerogatives of the supervisors of the heavenly host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committed to your hands that you should maintain temporal order in the kingdom on earth. While you may not meddle with the divine decrees concerning eternal life, you shall determine the issues of conduct as they concern the temporal welfare of the brotherhood on earth. And so, in all these matters connected with the discipline of the brotherhood, whatsoever you shall decree on earth, shall be recognized in heaven. Although you cannot determine the eternal fate of the individual, you may legislate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group, for, where two or three of you agree

이 이 일들 중에 무엇이던지 의견이 일치되고 내게 구한 것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너희가 요청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말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히포에서 사명활동하는 자들의 책임을 맡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질문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의 신하들에 대한 회계계산을 명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들이 장부(帳簿)의 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자, 우두머리 신하들 중의 하나가 끌려나와 왕에게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고백하였다. 이 때 왕의 재판정에서 일하는 한 관리가 그 신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과 이 빚을 갚을 힘이 없음에 대하여 변호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하였다. 그 우두머리 신하가 이 엄중한 판결을 듣고, 왕 앞에 엎드려 자비를 베풀어서 시간을 더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게으른 하인과 그의 가족들을 보자, 연민이 들었다. 그는 그를 놓아주라고 명하였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왕의 손에서 이렇게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 이 우두머리 집사는, 자기 일에 몰두 하였는데, 자기 아래에 있는 집사 가운데 일 백 데나리온 밖에 빚지지 아니한 하나를 찾아가, 그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내게 빚진 것을 모두 갚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동료 집사는 그 우두머리 집사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말했다; ‘단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곧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 집사는 그의 동료 집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동료 하인들이 되어 가는 일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그들의 왕, 주님에게 나아가 고하였다. 왕이 우두머리 집사의 모든 소행을 듣고,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너는 악하고 무익한 집사이다. 네가 연민을 베풀기를 구하였을 때, 너를 용서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 집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은혜를 모르는 우두머리 집사를 옥졸들에게 내어주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같은 인간의 이러한 결점으로 인하여 너희 형제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너희가 늘 응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 너희의 결점을 해하려달라

concerning any of these things and ask of me, it shall be done for you if your petition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And all this is ever true, for, where two or three believers are gathered together,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159:1.4 (1763.1) Simon Peter was the apostle in charge of the workers at Hippos, and when he heard Jesus thus speak, he asked: “Lord,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Until seven times?” And Jesus answered Peter: “Not only seven times but even to seventy times and seven. Therefore may the kingdom of heaven be likened to a certain king who ordered a financial reckoning with his stewards. And when they had begun to conduct this examination of accounts, one of his chief retainers was brought before him confessing that he owed his king ten thousand talents. Now this officer of the king’s court pleaded that hard times had come upon him, and that he did not have wherewith to pay this obligation. And so the king commanded that his property be confiscated, and that his children be sold to pay his debt. When this chief steward heard this stern decree, he fell down on his face before the king and implored him to have mercy and grant him more time, saying, ‘Lord, have a little mor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all.’ And when the king looked upon this negligent servant and his family,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He ordered that he should be released, and that the loan should be wholly forgiven.

159:1.5 (1763.2) “And this chief steward, having thus received mercy and forgiveness at the hands of the king, went about his business, and finding one of his subordinate stewards who owed him a mere hundred denarii, he laid hold upon him and, taking him by the throat, said, ‘Pay me all you owe.’ And then did this fellow steward fall down before the chief steward and, beseeching him, said: ‘Only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resently be able to pay you.’ But the chief steward would not show mercy to his fellow steward but rather had him cast in prison until he should pay his debt.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so distressed that they went and told their lord and master, the king. When the king heard of the doings of his chief steward, he called this ungrateful and unforgiving man before him and said: ‘You are a wicked and unworthy steward. When you sought for compassion, I freely forgave you your entire debt. Why did you not also show mercy to your fellow steward, even as I showed mercy to you?’ And the king was so very angry that he delivered his ungrateful chief steward to the jailers that they might hold him until he had paid all that was due. And even so shall my heavenly Father show the more abundant mercy to those who freely show mercy to their fellows. How can

고 요청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왕국으로부터 그 선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내 동료들에게 값없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예수는 동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시고 그 부당함을 밝히 가르치셨다. 계속적인 단련이 있어야만 하고, 공의가 실시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제신분의 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수는 집단으로서의 합법적이고 비판적인 권위는 인정하였지만, 개별존재로서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집단으로서의 이 권한 부여 조차도 그것이 개인적 권한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개별존재가 평결을 내리는 데에는 편견 또는 왜곡된 감정에 의해 비뚤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집단의 판결은 개인적 성향에서의 위험을 제거하고 부당성을 없애는 데 더욱 적당하다. 예수는 항상 부당성, 보복과 복수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자비와 참을성의 본보기로 일흔 일곱 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가인의 금속 무기 때문에 몹시 기뻐했음을 언급하는 성서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 무기들이 적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비교하면서: “카인이 손에 아무 무기도 없이 일곱 배 원수를 갚았으면, 이제 나는 내가 일흔-일곱 배로 갚으리라.” 외쳤었다.]

제 2 장. 이상한 설교자

예수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말라로 올라 가셨다. 그 날 저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의 모임이 있는 후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주(主)여,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계다가 귀신들까지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어제 아스타롯에 올라갔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와 같이 한 적이 결코 없었고, 저희들을 따르지도 않기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를 금하지 말라. 왕국 복음이 곧 모든 나라들에서 선포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는 자들 모두가 너희의 지도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르침이 이미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의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현시되고 있음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요한아, 내 이름으로 큰일을 한다는 자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돕게 되리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나에 대하여 악한 말을 제빠르게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나의 아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는 세대에는, 온전하게 자격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겠으나, 나는 그들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

you come to God asking consideration for your shortcomings when you are wont to chastise your brethren for being guilty of these same human frailties? I say to all of you: Freely you have received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therefore freely give to your fellows on earth.”

159:1.6 (1764.1) Thus did Jesus teach the dangers and illustrate the unfairness of sitting in personal judgment upon one's fellows. Discipline must be maintained, justice must be administered, but in all these matters the wisdom of the brotherhood should prevail. Jesus invested legislative and judicial authority in the *group*, not in the *individual*. Even this investment of authority in the group must not be exercised as personal authority. There is always danger that the verdict of an individual may be warped by prejudice or distorted by passion. Group judgment is more likely to remove the dangers and eliminate the unfairness of personal bias. Jesus sought always to minimize the elements of unfairness, retaliation, and vengeance.

159:1.7 (1762.9) [The use of the term seventy-seven as an illustration of mercy and forbearance was derived from the Scriptures referring to Lamech's exultation because of the metal weapons of his son Tubal-Cain, who, comparing these superior instruments with those of his enemies, exclaimed: "If Cain, with no weapon in his hand, was avenged seven times, I shall now be avenged seventy-seven."]

2. THE STRANGE PREACHER

159:2.1 (1764.3) Jesus went over to Gamala to visit John and those who worked with him at that place. That evening, after the session of questions and answers, John said to Jesus: "Master, yesterday I went over to Ashtaroth to see a man who was teaching in your name and even claiming to be able to cast out devils. Now this fellow had never been with us, neither does he follow after us; therefore I forbade him to do such things." Then said Jesus: "Forbid him not. Do you not perceive that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presently be proclaimed in all the world? How can you expect that all who will believe the gospel shall be subject to your direction? Rejoice that already our teaching has begun to manifest itself beyond the bounds of our personal influence. Do you not see, John, that those who profess to do great works in my name must eventually support our cause? They certainly will not be quick to speak evil of me. My son, in matters of this sort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reckon that he who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n the generations to come many who are not wholly worthy will do many strange things in my name, but I will not forbid them. I tell you that, even when a cup of cold water is given to a thirsty soul, the

는 것은, 냉수 한 잔을 목마른 자에게 주었을 때라도, 아버지의 메신저들이 그러한 사랑의 봉사에 대하여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요한을 매우 당황하게 하였다. 주(主)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경우에는 예수가 왕국의 영적 가르침들에 대한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며, 반면에 이번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가오는 세계적 형제신분을 이룩할 다른 집단들의 일을 관할하려는, 한 신자들의 집단으로서의 행정-관리적 통제와 사법권 문제들에 관한, 신자들의 바깥쪽으로 그리고 멀리 퍼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씀한 것이라는 사실은 요한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여생에 왕국을 위해 애쓰면서 이 체험을 종종 되새기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主)의 이름으로 대담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불쾌한 태도를 취하였다.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 보지도 못한 자가 감히 그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사도들은 언제나 온당치 못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요한이 금지시킨 이 사람은 사도들의 명령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옳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전에 카나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덴이었는데, 예수가 게레사 근처에서 병을 고쳐 주었던 미친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주(主)께서 그로부터 쫓아낸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 버랑으로 달려가게 하여 죽게 하였다는 것을 매우 자신하며 믿었다.

Father's messengers shall ever make record of such a service of love.”

159:2.2 (1764.4) This instruction greatly perplexed John. Had he not heard the Master say,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did not perceive that in this case Jesus was referring to man's personal relation to the spiritual teachings of the kingdom, while in the other case reference was made to the outward and far-flung social relations of believers regarding the questions of administrative control and the jurisdiction of one group of believers over the work of other groups which would eventually compose the forthcoming world-wide brotherhood.

159:2.3 (1765.1) But John oftentimes recounted this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his subsequent labors in behalf of the kingdom. Nevertheless, many times did the apostles take offense at those who made bold to teach in the Master's name. To them it always seemed inappropriate that those who had never sat at Jesus' feet should dare to teach in his name.

159:2.4 (1765.2) This man whom John forbade to teach and work in Jesus' name did not heed the apostle's injunction. He went right on with his efforts and raised up a considerable company of believers at Kanata before going on into Mesopotamia. This man, Aden, had been led to believe in Jesus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demented man whom Jesus healed near Kheresa, and who so confidently believed that the supposed evil spirits which the Master cast out of him entered the herd of swine and rushed them headlong over the cliff to their destruction.

제 3 장. 교사들과 신자들을 위한 지침

3. INSTRUCTION FOR TEACHERS AND BELIEVERS

도마와 그의 일행들이 사명활동하던 에드레이에서, 예수는 하루 낮과 밤을 보내셨으며, 저녁에 가진 토론에서 진리를 설교하는 자들에게 지표가 되고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요약하여 다시 기술한다면, 예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사람의 개인성을 항상 존중하라. 정의로운 원인은 결코 기세로서 권장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승리는 오직 영적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물질적인 영향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육체적인 기세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세에도 관련된 것이다. 남자나 여자들을 강제로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압도하는 논리와 정신적인 우월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논리의 무게로 압도하거나 날카로운 웅변으로 위압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한 요소

159:3.1 (1765.3) At Edrei, where Thomas and his associates labored, Jesus spent a day and a night and, in the course of the evening's discussion, gave expression to the principles which should guide those who preach truth, and which should activate all who t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Jesus taught:

159:3.2 (1765.4) Always respect the personality of man. Never should a righteous cause be promoted by force; spiritual victories can be won only by spiritual power. This injunction against the employment of material influences refers to psychic force as well as to physical force. Overpowering arguments and mental superiority are not to be employed to coerce men and women into the kingdom. Man's mind is not to be crushed by the mere weight of logic or overawed by shrewd

로서 감정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왕국 운동을 진전시키려 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 감정에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라. 두려움이나 연민 또는 단순한 정서에 호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에 공정하도록 하라; 자아-통제를 발휘하고 마땅한 절제력을 보여라; 너희 제자들의 개인성을 진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자아-존중을 상하게 하거나 꺾지 말라. 지나친 자아-존중은 적절한 겸손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끝에 가서는 자부심, 자만, 그리고 거만에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아-존중을 잃는 것은 때때로 의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아-존중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자아-존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삼가 하도록 하는 데에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릇됨만을 꾸짖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것들을 너그럽게 인지하여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말라. 자아-존중을 잃었던 자들과 실제로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아-존중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내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의 자아-존중을 손상치 않도록 조심하라.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나의 형제들을 희생시키면서 빈정거리는 일에 탐닉하지 말도록 하라. 두려움에 떠는 나의 자녀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놀고먹는 일은 자아-존중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선택한 임무에 계속 정진하도록 그들을 권고하며,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사람들을 위협하여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무익한 술책의 범주를 결단코 저지르지 말라. 사랑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에게 겁을 주어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요구에 온순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언젠가는 왕국의 자녀들은 감정상의 강한 느낌이 신성한 영의 인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 가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이상야릇하게 받는 감동이, 내주 하는 영의 인도에 수반되는 충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일생으로부터 영적으로 사는 보다 높은 일생으로 옮겨 간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만 하는 부차적인 갈등에 관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리 경고한다. 어느 쪽 세계든지 매우 온전하게 살았던 자에게는 갈등이나 혼돈이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가는 기간 동안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의무를 피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복음의 명에는 쉽고 진

eloquence. While emotion as a factor in human decisions cannot be wholly eliminated, it should not be directly appealed to in the teachings of those who would advance the cause of the kingdom. Make your appeals directly to the divine spirit that dwells within the minds of men. Do not appeal to fear, pity, or mere sentiment. In appealing to men, be fair; exercise self-control and exhibit due restraint; show proper respect for the personalities of your pupils. Remember that I have sai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and if any man will open, I will come in.”

159:3.3 (1765.5) In bringing men into the kingdom, do not lessen or destroy their self-respect. While overmuch self-respect may destroy proper humility and end in pride, conceit, and arrogance, the loss of self-respect often ends in paralysis of the will. It is the purpose of this gospel to restore self-respect to those who have lost it and to restrain it in those who have it. Make not the mistake of only condemning the wrongs in the lives of your pupils; remember also to accord generous recognition for the most praiseworthy things in their lives. Forget not that I will stop at nothing to restore self-respect to those who have lost it, and who really desire to regain it.

159:3.4 (1765.6) Take care that you do not wound the self-respect of timid and fearful souls. Do not indulge in sarcasm at the expense of my simple-minded brethren. Be not cynical with my fear-ridden children. Idleness is destructive of self-respect; therefore, admonish your brethren ever to keep busy at their chosen tasks, and put forth every effort to secure work for those who find themselves without employment.

159:3.5 (1766.1) Never be guilty of such unworthy tactics as endeavoring to frighten men and women into the kingdom. A loving father does not frighten his children into yielding obedience to his just requirements.

159:3.6 (1766.2) Sometim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will realize that strong feelings of emotion are not equivalent to the leadings of the divine spirit. To be strongly and strangely impressed to do something or to go to a certain plac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uch impulses are the leadings of the indwelling spirit.

159:3.7 (1766.3) Forewarn all believers regarding the fringe of conflict which must be traversed by all who pass from the life as it is lived in the flesh to the higher life as it is lived in the spirit. To those who live quite wholly within either realm, there is little conflict or confusion, but all are doomed to experience more or less uncertainty during the times of transition between the two levels of living. In entering the kingdom, you cannot escape its responsibilities or avoid its obligations, but

리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는 생명의 빵을 바로 눈앞에 놓고도 굶어 죽는 배고픈 혼들로 가득하다; 자기 안에 살아 계신 바로 그 하느님을 찾아 다니다가 죽어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즉시 잡아 쥘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간절한 가슴과 피곤에 지친 발로 왕국의 보물을 갈구하며 다닌다. 신앙이 종교와 가지는 관계는 돛과 배의 관계와 같다; 그것은 힘의 증가이지, 결코 일생에서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가지 투쟁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서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오직 한가지 전투가 있으니, 그것은 의심—믿지 않음—을 이겨 내는 것이다.

너희는 왕국의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느님과 화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동료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어떤 것이 그들의 특징적 열망과 이상을 가장 진실로 만족시키는지를 모두가 찾게 됨으로서, 똑같이 호소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의 감정을 아끼고 그들의 연약함을 오래 참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 냉혹하고 그리고 사악한 불의에 대해 관용이 없다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한다. 내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는 내가 정말로 유순하고 겸손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죄로 가득 찬 반역과 고의적인 악행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마찬가지로 가혹하도록 냉혹하다.

너희는 너희 선생을 묘사할 때, 슬픔에 가득 찬 한 남자로 그리지 마라. 장차 올 세대들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한 광채, 우리의 선한 뜻으로 인한 낙천적 기질, 그리고 우리의 선한 재치로 인한 영감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변환시키는 그 힘으로 전달되는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의 종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들로 약동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들의 가슴 안에서 언제까지나 더욱 기쁨을 향유하려고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하느님을 확신하는 자는 누구나 증가하는 행복을 체험할 것이다.

거짓된 동정심의 불안전한 소도구에 기대려는 것을 피하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쳐라. 너희가 자아-연민을 탐닉하는 것에서는 강한 성격을 개발해 낼 수 없다; 비참한 불행을 함께 하는 단순한 동료관계의 기만적인 영향을 피하기를 정직하게 애쓰라. 삶의 시련 앞에 단지 건성으로 일어서 있는 소심한 혼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과도한 연민을 자제하고, 용감하고 용기있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펼쳐라. 단 하나의 투쟁도 없이 자신들의 곤경 앞에 드러누워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제공하지 말라. 단지 그들도 보답으로 너희에게 동정할 수도 있듯이 단순히 너희 동료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라.

내 자녀들이 일단 신성한 현존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자아-의식적이 되면, 그러한 신앙은 마음을 확대시키고, 혼을 고귀하게 하며, 개인성을 강

remember: The gospel yoke is easy and the burden of truth is light.

159:3.8 (1766.4) The world is filled with hungry souls who famish in the very presence of the bread of life; men die searching for the very God who lives within them. Men seek for the treasures of the kingdom with yearning hearts and weary feet when they are all within the immediate grasp of living faith. Faith is to religion what sails are to a ship; it is an addition of power, not an added burden of life. There is but one struggle for those who enter the kingdom, and that is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he believer has only one battle, and that is against doubt — unbelief.

159:3.9 (1766.5) In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are simply teaching friendship with God. And this fellowship will appeal alike to men and women in that both will find that which most truly satisfies their characteristic longings and ideals. Tell my children that I am not only tender of their feelings and patient with their frailties, but that I am also ruthless with sin and intolerant of iniquity. I am indeed meek and humble in the presence of my Father, but I am equally and relentlessly inexorable where there is deliberate evil-doing and sinful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159:3.10 (1766.6) You shall not portray your teacher as a man of sorrows. Future generations shall know also the radiance of our joy, the buoyance of our good will, and the inspiration of our good humor. We proclaim a message of good news which is infectious in its transforming power. Our religion is throbbing with new life and new meanings. Those who accept this teaching are filled with joy and in their hearts are constrained to rejoice evermore. Increasing happiness is always the experience of all who are certain about God.

159:3.11 (1766.7) Teach all believers to avoid leaning upon the insecure props of false sympathy. You cannot develop strong characters out of the indulgence of self-pity; honestly endeavor to avoid the deceptive influence of mere fellowship in misery. Extend sympathy to the brave and courageous while you withhold overmuch pity from those cowardly souls who only halfheartedly stand up before the trials of living. Offer not consolation to those who lie down before their troubles without a struggle. Sympathize not with your fellows merely that they may sympathize with you in return.

159:3.12 (1766.8) When my children once become self-conscious of the assurance of the divine presence, such a faith will expand the mind, ennoble the soul, reinforce the personality,

건하게 하고, 행복을 증강시키며, 영 인식을 더욱 깊게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 받는 힘을 강화시켜 준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것으로서 시간의 우연한 사고나 일상적인 자연의 재앙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라. 복음을 믿는 것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은 아니지만, 곤경이 너를 덮칠 때에 너희가 반드시 두려움없이 있게 되리라 보장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과감하게 나를 믿고 그리고 전심으로 내 뒤를 따라서 나아가려 한다면, 그렇게 행함으로써 너희는 곤경으로 향하는 그 확신찬 통로의 길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설 것이다. 나는 역경의 바다로 부터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모든 것에 두루 내내 너희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한다.

믿는 이 무리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까지 예수는 더욱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들을 들었던 자들은 그것들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종 다시 이야기하곤 하였다.

제 4 장. 나다니엘과의 대화

그 다음에는 예수가 나다니엘과 그의 일행들이 수고하고 있는 아빌라로 가셨다. 나다니엘은 인정된 히브리 경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듯이 보이는 예수의 어떤 발언들로 인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날 밤에, 질문과 대답으로 일관된 통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다니엘은 예수를 아무도 없는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물었다: “주(主)여, 제가 성서를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께서 거룩한 기록들 중에서 일부분—제가 보기에든 가장 훌륭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아 왔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이전에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어 온 하느님 말씀들, 바로 그것이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추측합니다. 성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당황하고 있는 사도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다니엘아,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나는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성서를 대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네 형제들에게 네가 이것들을 관계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들과 성서의 가르침들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 성서가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 글들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고와 열망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이나 가르침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아주 먼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국 복음을 위하여 주위 모아진, 보다 나은 저들 진리 가

augment the happiness, deepen the spirit perception, and enhance the power to love and be loved.

159:3.13 (1767.1) Teach all believers that those who enter the kingdom are not thereby rendered immune to the accidents of time or to the ordinary catastrophes of nature. Believing the gospel will not prevent getting into trouble, but it will insure that you shall be *unafraid* when trouble does overtake you. If you dare to believe in me and wholeheartedly proceed to follow after me, you shall most certainly by so doing enter upon the sure pathway to trouble. I do not promise to deliver you from the waters of adversity, but I do promise to go with you through all of them.

159:3.14 (1767.2) And much more did Jesus teach this group of believers before they made ready for the night's sleep. And they who heard these sayings treasured them in their hearts and did often recite them for the edification of the apostles and disciples who were not present when they were spoken.

4. THE TALK WITH NATHANIEL

159:4.1 (1767.3) And then went Jesus over to Abila, where Nathaniel and his associates labored. Nathaniel was much bothered by some of Jesus' pronouncements which seemed to detract from the authority of the recognized Hebrew scriptures. Accordingly, on this night, after the usual period of questions and answers, Nathaniel took Jesus away from the others and asked: “Master, could you trust me to know the truth about the Scriptures? I observe that you teach us only a portion of the sacred writings — the best as I view it — and I infer that you reject the teachings of the rabbis to the effect that the words of the law are the very words of God, having been with God in heaven even before the times of Abraham and Moses. What is the truth about the Scriptures?” When Jesus heard the question of his bewildered apostle, he answered:

159:4.2 (1767.4) “Nathaniel, you have rightly judged; I do not regard the Scriptures as do the rabbis. I will talk with you about this matter on condition that you do not relate these things to your brethren, who are not all prepared to receive this teaching. The words of the law of Moses and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were not in existence before Abraham. Only in recent times have the Scriptures been gathered together as we now have them. While they contain the best of the higher thoughts and longings of the Jewish people, they also contain much that is far from being 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 and teachings of the Father in heaven; wherefore must I choose

르침 중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들 가르침은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그들 중에 일부는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 책들의 가르침들은 그들이 기원된 그 시대의 깨우침에 대한 시각과 범위를 나타낸다. 진리를 계시한다는 점에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신뢰할 만하다. 성서가 결점이 있고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오늘날 모든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 지혜와 영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모음집을 이루어놓았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그 책이 지닌 이름의 사람에게 의해 쓰인 것이 아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다. 만일에 요나에 관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심지어는 요나라는 사람이 전혀 있지 않았다 해도,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깊은 진리가 있으며, 소위 이방이라고 불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동료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눈에는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신성하며, 그들은 이 글 속에 정의(正義), 진리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가장 높은 개념들을 기록해 놓았다. 성서는 진실을 매우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와서 모든 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다니엘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그들의 적을 모두—남녀노소를 막론하고—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는 성서의 기록을 한 순간도 결코 믿으려 하지 말라. 그러한 기록들은 사람들의 말이며, 매우 거룩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성서는 그것을 지어낸 사람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지위를 늘 반영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선지자들이 사무엘로부터 이사야에 이르는 그들의 기록을 만들어 가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 발전해 간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성서가 종교적인 가르침과 영적 안내를 위한 것임을 너는 꼭 기억하라. 성서는 역사거나 철학자들의 작품이 아니다.

“성서 기록이 절대로 완전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틀림없다는 잘못된 관념이 가장 통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이 성스러운 글들이 잘못 해석되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왕국 복음의 더욱 새로운 가르침에 저들이 저항하기를 굳게 결정하면서, 성서가 영감 받았다는 교리 그리고 그 해석상의 오류의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나다니엘아, 아버지는 진리에 대한 계시를 어느 한 세대 또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 하거라.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 왔

from among the better teachings those truths which are to be gleaned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159:4.3 (1767.5) “These writings are the work of men, some of them holy men, others not so holy. The teachings of these books represent the views and extent of enlightenment of the times in which they had their origin. As a revelation of truth, the last are more dependable than the first. The Scriptures are faulty and altogether human in origin, but mistake not, they do constitute the best collection of religious wisdom and spiritual truth to be found in all the world at this time.

159:4.4 (1767.6) “Many of these books were not written by the persons whose names they bear, but that in no way detracts from the value of the truths which they contain. If the story of Jonah should not be a fact, even if Jonah had never lived, still would the profound truth of this narrative, the love of God for Nineveh and the so-called heathen, be none the less precious in the eyes of all those who love their fellow men. The Scriptures are sacred because they present the thoughts and acts of men who were searching for God, and who in these writings left on record their highest concepts of righteousness, truth, and holiness. The Scriptures contain much that is true, very much, but in the light of your present teaching, you know that these writings also contain much that is misrepresentative of the Father in heaven, the loving God I have come to reveal to all the worlds.

159:4.5 (1768.1) “Nathaniel, never permit yourself for one moment to believe the Scripture records which tell you that the God of love directed your forefathers to go forth in battle to slay all their enemies — men, women, and children. Such records are the words of men, not very holy men, and they are not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s always have, and always will, reflect the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status of those who create them. Have you not noted that the concepts of Yahweh grow in beauty and glory as the prophets make their records from Samuel to Isaiah? And you should remember that the Scriptures are intended for religious instruction and spiritual guidance. They are not the works of either historians or philosophers.

159:4.6 (1768.2) “The thing most deplorable is not merely this erroneous idea of the absolute perfection of the Scripture record and the infallibility of its teachings, but rather the confusing misinterpretation of these sacred writings by the tradition-enslaved scribes and Pharisees at Jerusalem. And now will they employ both the doctrine of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ir misinterpretations thereof in their determined effort to withstand these newer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athaniel, never forget, the Father does not limit the revelation of truth to any

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완전하다는 이 교리를 때문에 혼동되고 낙심될 것이다.

“진리에서의 권위는 그 살아있는 현시활동 속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영이고, 어떤 다른 세대의 다소 희미하면서도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옛 사람 중에 성스러운 사람들이 설혹 영감을 받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들의 말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영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 가르침에 대한 너희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인하여 가지각색의 진리 논쟁자 분파로 속히 나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대에 있어서는 기록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나다니엘아, 내 말을 잘 기억하라. 인간 본성이 닿은 것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가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상대적으로 순수할 뿐이며 부분적인 신성이 있을 뿐이다. 창조체는 틀림없는 것을 갈망하지만, 오직 창조자들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오직 그 민족의 현명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감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신비의 책이라고 봉해 버리는 교리에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무지, 완고함, 그리고 편협 되고 웅졸한 마음에 의해서만 봉해지는 것이다. 성서가 발하는 빛은 오직 선입관에 의해서 약해지며 미신적 습관에 의해 어두워진다. 신성함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 종교가 상식적인 보호수단이 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 과거에 쓰인 성스러운 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정직한 혼들이 복음의 새로운 빛, 다른 세대에서 하느님을-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가장 슬픈 점은 이 전통주의의 존엄함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일부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성서의 한계성을 거의 충분히 납득하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는 비겁하며,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거룩한 글들에 관하여 진상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더욱 즐겨 빠져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글들을, 다른 세대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 지혜와 종교적 영감 그리고 영적 가르침의 저장고로서 간청하는 대신, 성서를 왜곡하고 일상생활의 노예로 만드는 세부사항과, 영적이 아닌 일들의 권위에 대한 안내서로 만들면서 그릇된 길로 빛나게 한다.”

나다니엘은 주(主)의 분명한 말씀에 깨우쳐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대화를 깊은 상념에 잠겨서 심사숙고하였지만, 예수가 상승한 이후까지

one generation or to any one people. Many earnest seekers after the truth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confused and disheartened by these doctrines of the perfection of the Scriptures.

159:4.7 (1768.3) “The authority of truth is the very spirit that indwells its living manifestations, and not the dead words of the less illuminated and supposedly inspired men of another generation. And even if these holy men of old lived inspired and spirit-filled lives, that does not mean that their words were similarly spiritually inspired. Today we make no record of the teachings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lest, when I have gone, you speedily become divided up into sundry groups of truth contenders as a result of the diversity of your interpretation of my teachings. For this generation it is best that we live these truths while we shun the making of records.

159:4.8 (1768.4) “Mark you well my words, Nathaniel, nothing which human nature has touched can be regarded as infallible. Through the mind of man divine truth may indeed shine forth, but always of relative purity and partial divinity. The creature may crave infallibility, but only the Creators possess it.

159:4.9 (1768.5) “But the greatest error of the teaching about the Scriptures is the doctrine of their being sealed books of mystery and wisdom which only the wise minds of the nation dare to interpret. The revelations of divine truth are not sealed except by human ignorance, bigotry, and narrow-minded intolerance. The light of the Scriptures is only dimmed by prejudice and darkened by superstition. A false fear of sacredness has prevented religion from being safeguarded by common sense. The fear of the authority of the sacred writings of the past effectively prevents the honest souls of today from accepting the new light of the gospel, the light which these very God-knowing men of another generation so intensely longed to see.

159:4.10 (1769.1) “But the saddest feature of all is the fact that some of the teachers of the sanctity of this traditionalism know this very truth. They more or less fully understand these limitations of Scripture, but they are moral cowards, intellectually dishonest. They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sacred writings, but they prefer to withhold such disturbing facts from the people. And thus do they pervert and distort the Scriptures, making them the guide to slavish details of the daily life and an authority in things nonspiritual instead of appealing to the sacred writings as the repository of the moral wisdom, religious inspiration, and the spiritual teaching of the God-knowing men of other generations.”

159:4.11 (1769.2) Nathaniel was enlightened, and shocked, by the Master's pronouncement. He long pondered this talk in the depths of his soul, but he

이 대화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주(主)가 설명한 모든 이야기를 전하기에 두려워하였다.

told no man concerning this conference until after Jesus' ascension; and even then he feared to impart the full story of the Master's instruction.

제 5 장. 예수의 종교에서의 적극적 본성

5. THE POSITIVE NATURE OF JESUS' RELIGION

야고보가 사명활동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예수는 왕국 복음의 적극적 본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주(主)는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 보다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가장 좋은 영적 음식으로 자기 혼을 먹이라고 청중들에게 훈계하였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야고보가 끼어들어 물었다: “주(主)여, 우리의 개인적 향상에 보다 적당한 구절들을 성서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좋다. 야고보야, 네가 성서를 읽을 때에 영원히 참되고 신성하게 아름다운 다음과 같은 가르침들을 찾아보라:

“오 주님. 내 속에 정결한 가슴을 창조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자신을 사랑함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나,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네게 이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가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왕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삽입하기 위하여, 날마다 히브리 경전의 진수를 인용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은 하느님을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암시하지만, 예수는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을, 독립하지 못한 자기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에 비유하였으며, 이 가르침을 그의 종교에 주춧돌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아버지신분 교리는 반드시 사람의 형제신분 실행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의 종교의 전부이며 실천적인 내용이다. 예수는 유대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셔서 왕국 복음의 새로운 가르침 안에 옮겨놓았다.

예수는 적극적인 행동의 정신을 유대교의 수동적인 교리 속에 적용시키셨다. 예수는, 의식을 지키는 요구를 따르는 부정적인 순종 대신에, 그의 새 종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명하였다. 예수의 종교는 단지 믿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이 요

159:5.1 (1769.3) At Philadelphia, where James was working, Jesus taught the disciples about the positive natur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When, in the course of his remarks, he intimated that some parts of the Scripture were more truth-containing than others and admonished his hearers to feed their souls upon the best of the spiritual food, James interrupted the Master, asking: “Would you be good enough, Master, to suggest to us how we may choose the better passages from the Scriptures for our personal edification?” And Jesus replied: “Yes, James, when you read the Scriptures look for those eternally true and divinely beautiful teachings, such as:

159:5.2 (1769.4)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Lord.

159:5.3 (1769.5)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159:5.4 (1769.6)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59:5.5 (1769.7) “For I, the Lord your God, will hold your right hand, saying, fear not; I will help you.

159:5.6 (1769.8) “Neither shall the nations learn war any more.”

159:5.7 (1769.9) And this is illustrative of the way Jesus, day by day, appropriated the cream of the Hebrew scriptures for the instruction of his followers and for inclusion in the teachings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ther religions had suggested the thought of the nearness of God to man, but Jesus made the care of God for man like the solicitude of a loving father for the welfare of his dependent children and then made this teaching the cornerstone of his religion. And thus did the doctrine of the fatherhood of God make imperative the pract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worship of God and the service of man became the sum and substance of his religion. Jesus took the best of the Jewish religion and translated it to a worthy setting in the new teaching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59:5.8 (1769.10) Jesus put the spirit of positive action into the passive doctrines of the Jewish religion. In the place of negative compliance with ceremonial requirements, Jesus enjoined the positive doing of that which his new religion required of those who accepted it. Jesus' religion consisted not merely in

구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있다. 예수는 그의 종교의 근본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히려 사회봉사는 참된 종교정신을 소유함을 나타내는 확실한 효과중의 하나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성서의 좋은 반쪽을 이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 반면에 보다 뒤 떨어진 부분들은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위대한 교훈은 “너희는 네 민족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서의 기록으로부터 예수가 취한 것이다. 예수는 이 성서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하였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거부하였다. 예수는 부정적이거나 순전히 소극적인 무저항을 마찬가지로 더욱 반대하였다. 예수가 말씀하기를 “원수가 네 한 쪽 뺨을 칠 때 소극적으로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뺨을 돌려 대라; 다시 말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네 형제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예수는 따르는 자들에게 일생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뺨을 돌려 대든지 또는 그것을 상징할만한 어떤 행동이든지, 술선하는 것이 요청되며,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개인성 표현이 요구된다.

예수는, 악에 대하여 무저항적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모욕에, 소극적으로 굴복하는 실천 관행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선(善)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될 때까지, 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가장 고약한 악보다 진실된 선이 반드시 더 강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주(主)는 정의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을 가르치셨는데: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주어지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라.” 그리고 주(主) 자신이, “그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말 그대로 사셨다. 복음의 이 측면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후에 말씀한 많은 비유들에 의하여 잘 표현되었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인내심으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훈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의 인간 책임과 신성한 특권을 충분히 채우기까지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겉옷을 부당하게 벗겨가거든 다른 옷도 벗어주라고 가르치셨을 때, 글자 그대로 두 번째 겉옷을 의미하였기 보다는 오히려, 보복하라고 충고하는 옛 가르침—“눈에는 눈으로”—의 어떤 것 대신에 그릇된 행동을 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하라는 관념으로서 설명한 것이었다. 예수는 보복하려는 생각을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로 고난을 참아내는 자 또는 불공정의 희생자가 되는 관념을 아주 싫어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는 악에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는 세 가지 방

believing, but in actually *doing*, those things which the gospel required. He did not teach that the essence of his religion consisted in social service, but rather that social service was one of the certain effects of the possession of the spirit of true religion.

159:5.9 (1770.1) Jesus did not hesitate to appropriate the better half of a Scripture while he repudiated the lesser portion. His great exhortation,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he took from the Scripture which reads: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against the children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esus appropriated the positive portion of this Scripture while rejecting the negative part. He even opposed negative or purely passive nonresistance. Said he: “When an enemy smites you on one cheek, do not stand there dumb and passive but in positive attitude turn the other; that is, do the best thing possible actively to lead your brother in error away from the evil paths into the better ways of righteous living.” Jesus required his followers to react positively and aggressively to every life situation. The turning of the other cheek, or whatever act that may typify, demands initiative, necessitates vigorous, active, and courageous expression of the believer’s personality.

159:5.10 (1770.2) Jesus did not advocate the practice of negative submission to the indignities of those who might purposely seek to impose upon the practitioners of nonresistance to evil, but rather that his followers should be wise and alert in the quick and positive reaction of good to evil to the end that they might effectively overcome evil with good. Forget not, the truly good is invariably more powerful than the most malignant evil. The Master taught a positive standard of righteousness: “Whosoever wishes to be my disciple, let him disregard himself and take up the full measure of his responsibilities daily to follow me.” And he so lived himself in that “he went about doing good.” And this aspect of the gospel was well illustrated by many parables which he later spoke to his followers. He never exhorted his followers patiently to bear their obligations but rather with energy and enthusiasm to live up to the full measure of their human responsibilities and divine privileges in the kingdom of God.

159:5.11 (1770.3) When Jesus instructed his apostles that they should, when one unjustly took away the coat, offer the other garment, he referred not so much to a literal second coat as to the idea of doing something *positive* to save the wrongdoer in the place of the olden advice to retaliate — “an eye for an eye” and so on. Jesus abhorred the idea either of retaliation or of becoming just a passive sufferer or victim of injustice. On this occasion he taught them the three ways of contending with, and resisting, evil: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1. 악을 악으로 갚음—적극적이지만 불의한 방법.

2. 불평이나 저항 없이 악을 견뎌—순전히 소극적인 방법.

3. 악을 선으로 갚음, 그 상황의 주인이 되도록 의지를 주장하고, 선으로 악을 정복함—적극적이며 의로운 방법.

사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主)여, 만일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짐을 1마일이나 지고 가도록 제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 낯선 사람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앉아서 한숨을 쉬지 말라.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네가 행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거든, 적어도 네가 그 짐을 다음 일 마일에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불의한 그리고 신앙 없는 낯선 자에게 확실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나쁜 짓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었으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고, 죄인들을 찾는데 솔선하며, 그들을 찾았을 때 기쁨을 향유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하느님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는 종교에 있어서의 이 적극적인 내용의 말씀을 그의 기도에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소극적인 황금률을 인간 공정성에 대한 적극적 훈계로 바꾸었다.

예수는 가르치실 때에 세부사항들을 이야기하여 산만하게 되는 것을 항상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예수는 화려한 문체의 말을 멀리하였으며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말장난 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예수는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금, 누룩, 고기잡이, 어린 아이 등과 같은 많은 단어들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순간을 영원과 대비시킨 것 외에도 많은 경우에 대조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의 묘사 방법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예를 들어 가르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연스러움에 있었다. 예수는 종교의 철학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가져 왔던 것이다. 그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애정의 증여와 함께, 기본적 요소가 되는 혼이 필요하다는 것을 묘사하였다.

제 6 장. 마가단으로 돌아감

데카폴리스에서의 네 주간 동안의 전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왕국에 받아들여졌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즉각적인 예수의 개인적 현존에서의 영감이 없이도, 그들의 일을 감당하였다는 점에서 값진 체험을 하였다.

159:5.12 (1770.4) 1. To return evil for evil — the positive but unrighteous method.

159:5.13 (1770.5) 2. To suffer evil without complaint and without resistance — the purely negative method.

159:5.14 (1770.6) 3. To return good for evil, to assert the will so as to become master of the situation, to overcome evil with good — the positive and righteous method.

159:5.15 (1770.7) One of the apostles once asked: “Master, what should I do if a stranger forced me to carry his pack for a mile?” Jesus answered: “Do not sit down and sigh for relief while you berate the stranger under your breath. Righteousness comes not from such passive attitudes. If you can think of nothing more effectively positive to do, you can at least carry the pack a second mile. That will of a certainty challenge the unrighteous and ungodly stranger.”

159:5.16 (1770.8) The Jews had heard of a God who would forgive repentant sinners and try to forget their misdeeds, but not until Jesus came, did men hear about a God who went in search of lost sheep, who took the initiative in looking for sinners, and who rejoiced when he found them willing to return to the Father's house. This positive note in religion Jesus extended even to his prayers. And he converted the negative golden rule into a positive admonition of human fairness.

159:5.17 (1771.1) In all his teaching Jesus unfailingly avoided distracting details. He shunned flowery language and avoided the mere poetic imagery of a play upon words. He habitually put large meanings into small expressions.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Jesus reversed the current meanings of many terms, such as salt, leaven, fishing, and little children. He most effectively employed the antithesis, comparing the minute to the infinite and so on. His pictures were striking, such as, “The blind leading the blind.” But the greatest strength to be found in his illustrative teaching was its naturalness. Jesus brought the philosophy of religion from heaven down to earth. He portrayed the elemental needs of the soul with a new insight and a new bestowal of affection.

6. THE RETURN TO MAGADAN

159:6.1 (1771.2) The mission of four weeks in the Decapolis was moderately successful. Hundreds of souls were received into the kingdom, and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had a valuable experience in carrying on their work without the inspiration of the immediate personal presence of Jesus.

9월 16일, 금요일에, 모든 사명활동자들은 미리 지시되었던 대로 마가단 공원에 모두 모였다. 안식일이 되자, 왕국의 일을 확장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이 한껏 논의되었던 백이 넘는 신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다윗의 메신저들이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인접한 지역들에 퍼져 있는 믿는 자들이 잘 있는가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이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메신저 무리단의 봉사의 굉장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 메신저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의 신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고 사도들과 접촉이 유지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암울한 기간 동안 자금을 모으는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이 돈은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의 양식을 위하여서도 쓰여졌지만, 더 나아가서는 열 두 사도들과 열 두 전도자들의 가족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 무렵에 아브너는 그의 활동 근거지를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으며, 새로 옮긴 장소는 다윗의 메신저들의 본부이기도 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벳세다 사이에 밤을 새워 교대식으로 봉사하는 메신저를 두었다. 이들은 매일 저녁에 예루살렘을 떠나 달려갔으며, 시카와 스키토폴리스에서 교대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벳세다에 도착하곤 하였다.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이제 왕국을 위한 사명활동의 마지막 신(新)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휴식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페레아 사명이 설교 그리고 전도 운동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이것은 곧바로 그들의 예루살렘 도착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리고는 예수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막을 내리는 에피소드를 연출하는 때까지 바로 이어졌다.

^{159:6.2 (1771.3)} On Friday, September 16, the entire corps of workers assembled by prearrangement at Magadan Park. On the Sabbath day a council of more than one hundred believers was held at which the future plans for extending the work of the kingdom were fully considered. The messengers of David were present and made reports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 believers throughout Judea, Samaria, Galilee, and adjoining districts.

^{159:6.3 (1771.4)} Few of Jesus' followers at this time fully appreciated the great value of the services of the messenger corps. Not only did the messengers keep the believers throughout Palestine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with Jesus and the apostles, but during these dark days they also served as collectors of funds, not only for the sustenance of Jesus and his associates, but also for the support of the families of the twelve apostles and the twelve evangelists.

^{159:6.4 (1771.5)} About this time Abner moved his base of operations from Hebron to Bethlehem, and this latter place was also the headquarters in Judea for David's messengers. David maintained an overnight relay messenger service between Jerusalem and Bethsaida. These runners left Jerusalem each evening, relaying at Sychar and Scythopolis, arriving in Bethsaida by breakfast time the next morning.

^{159:6.5 (1771.6)} Jesus and his associates now prepared to take a week's rest before they made ready to start upon the last epoch of their labors in behalf of the kingdom. This was their last rest, for the Perean mission developed into a campaign of preaching and teaching which extended right on down to the time of their arrival at Jerusalem and of the enactment of the closing episodes of Jesus' earth career.

제 160 편 알렉산드리아의 로단

⇨ 159

유랜시아 책

16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0 편 알렉산드리아의 로단

섹션

소개

제 1 장. 로단의 그리스 철학

제 2 장. 삶의 기술

제 3 장. 성숙의 매혹들

제 4 장. 성숙의 균형

제 5 장. 이상(理想)의 종교

PAPER 160

RODAN OF ALEXANDRIA

SECTIONS

Introduction

1. Rodan's Greek Philosophy

2. The Art of Living

3. The Lures of Maturity

4. The Balance of Maturity

5. The Religion of the Ideal

소개

9월 18일 일요일 아침, 안드레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계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다니엘과 도마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집으로 갔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는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였지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이라 하는 어떤 그리스 철학자와 토론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리스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명을 수행하였던 아브너의 연관-동료들 중의 하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최근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로단은 자신의 삶의 철학과 예수의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과제에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었으며, 주(主)가 자신에게 이 문제들에 대하여 얘기해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가단에 왔다. 또한 그는 예수나 그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원래 그대로의 그리고 권위 있는 해석본을 확보하기 원했다. 주(主)는 로단과 그러한 토론에 들어가기를 사양하였지만, 그를 정중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답례로 그에게 복음에 대하여 말해주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INTRODUCTION

160:0.1 (1772.1) ON SUNDAY morning, September 18, Andrew announced that no work would be planned for the coming week. All of the apostles, except Nathaniel and Thomas, went home to visit their families or to sojourn with friends. This week Jesus enjoyed a period of almost complete rest, but Nathaniel and Thomas were very busy with their discussions with a certain Greek philosopher from Alexandria named Rodan. This Greek had recently become a disciple of Jesus through the teaching of one of Abner's associates who had conducted a mission at Alexandria. Rodan was now earnestly engaged in the task of harmonizing his philosophy of life with Jesus' new religious teachings, and he had come to Magadan hoping that the Master would talk these problems over with him. He also desired to secure a firsthand and authoritative version of the gospel from either Jesus or one of his apostles. Though the Master declined to enter into such a conference with Rodan, he did receive him graciously and immediately directed that Nathaniel and Thomas should listen to all he had to say and tell him about the gospel in return.

제 1 장. 로단의 그리스 철학

1. RODAN'S GREEK PHILOSOPHY

월요일 이른 아침에, 로단은 나다니엘과 도마 그리고 마침 마가단에 있었던 스물네 명가량의 신자들 무리에게 열 번의 연속된 강연을 하였다. 이들 얘기를 응축하고, 병합하여, 현대의 문체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고찰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세 가지의 큰 본능적 욕구—충동, 욕망, 애착—를 담고 있다. 강인한 성격, 당당한 개인성은 생명의 본능적 충동을 삶에서의 사회적 기술로 전향시킴으로서, 현재의 욕망을 영속적인 달성이 가능한 더욱 높은 소망들로 변환시킴으로서만 오직 얻어지며, 한편으로는 실존의 평범한 애착을 자신의 전통적이고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미(未)탐험 관념과 미(未)개척 이상에서의 더욱 높은 영역으로 옮겨져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문명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삶의 기술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수록 성격 개발의 과업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만일 진보가 계속된다면 매 열 세대마다 생활의 새로운 기술은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재능이 매우 발달하여 사회의 복잡성을 더욱 조속히 가중시킨다면, 삶의 기술은 다시 습득해야 하는 기간은 더욱 짧아져서 매 세대마다 그리해야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삶의 기술에서의 진보가 실존(實在)의 기법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인간성은 다시 단순한 삶의 충동으로 조속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성은 미성숙의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사회는 충만한 성숙으로 자라가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성숙은 사람이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으로서의 충족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정도와, 영원한 목표를 향한 진보적인 전진의 더욱 풍성한 만족을 잘 제공하는, 그러한 달성을 위해 분투하는, 우월한 열망에 즐겁게 나서려는 사람들의 현재의 욕망과 동등하다. 그러나 사회적 성숙의 진정한 징표는, 이상적인 영적 실체의 미(未)개척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탐험된 적이 없는 가능성을 추구함에서 나오는, 걱정을 일으키고 에너지가-요구되는 애착을 위하여, 기존의 믿음과 전통적 관념에서의 편안을-증진하는 애착의 기준 밑에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사는 권리를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태도이다.

동물들도 생명의 충동에 훌륭하게 반응하지만,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적인 충동으로 사는 체험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사람만이 삶의 예술을 달성할 수 있다. 동물들은 다만 맹목적이며 본능적인 충동만을 알 뿐이다; 사람은 능히 선천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충동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지능적 예술의 높은 경지, 심지어는 초월적 기쁨과 영적 황홀의 경지에서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동물들은 일생의 목적에 대

160:1.1 (1772.2) Early Monday morning, Rodan began a series of ten addresses to Nathaniel, Thomas, and a group of some two dozen believers who chanced to be at Magadan. These talks, condensed, combined, and restated in modern phraseology, present the following thoughts for consideration:

160:1.2 (1772.3) Human life consists in three great drives — urges, desires, and lures. Strong character, commanding personality, is only acquired by converting the natural urge of life into the social art of living, by transforming present desires into those higher longings which are capable of lasting attainment, while the commonplace lure of existence must be transferred from one's conventional and established ideas to the higher realms of unexplored ideas and undiscovered ideals.

160:1.3 (1772.4) The more complex civilization becomes, the more difficult will become the art of living. The more rapid the changes in social usage, the more complicated will become the task of character development. Every ten generations mankind must learn anew the art of living if progress is to continue. And if man becomes so ingenious that he more rapidly adds to the complexities of society, the art of living will need to be remastered in less time, perhaps every single generation. If the evolution of the art of living fails to keep pace with the technique of existence, humanity will quickly revert to the simple urge of living — the attainment of the satisfaction of present desires. Thus will humanity remain immature; society will fail in growing up to full maturity.

160:1.4 (1773.1) Social maturity is equivalent to the degree to which man is willing to surrender the gratification of mere transient and present desires for the entertainment of those superior longings the striving for whose attainment affords the more abundant satisfactions of progressive advancement toward permanent goals. But the true badge of social maturity is the willingness of a people to surrender the right to live peaceably and contentedly under the ease-promoting standards of the lure of established beliefs and conventional ideas for the disquieting and energy-requiring lure of the pursuit of the unexplored possibilities of the attainment of undiscovered goals of idealistic spiritual realities.

160:1.5 (1773.2) Animals respond nobly to the urge of life, but only man can attain the art of living, albeit the majority of mankind only experience the animal urge to live. Animals know only this blind and instinctive urge; man is capable of transcending this urge to natural function. Man may elect to live upon the high plane of intelligent art, even that of celestial joy and spiritual ecstasy. Animals make no inquiry into the purposes of life; therefore they

하여 그 어떤 질문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걱정이라는 것이 없으며, 자살하지도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자살은, 실존에서의 순전히 동물단계에서 그러한 인간 존재들이 솟아 나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인간 존재들의 탐구적인 노력이, 필사자 체험에서의 예술적 차원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삶의 의미를 모르지만; 인간은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들에 대한 의미도 인식한다.—인간은 통찰력을 자아-의식한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논리와 모험적인 예술의 일생을 위하여, 본능적 갈망의 일생을 감히 버릴 때, 적어도 지성적 그리고 감성적 성숙의 어느 정도를 달성하는 시기까지는, 그들은 감성적인 피해—갈등, 불행, 불확실성—의 필연적 위험들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낙심, 염려, 게으름은 도덕적으로 미숙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인간사회는, 개별적인 성숙의 달성과 종족의 성숙이 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성숙된 인간은 모든 다른 필사자를 즉시 온정의 느낌과 너그러운 감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성숙된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사랑과 생각으로 미숙한 자들을 바라본다.

성공적인 삶이란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한 기법들을 습득하는 예술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어려움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분리시키며, 정직하게 그 본질과 비중을 인지하는 것이다. 가장 큰 오류는, 일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시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래-간직된 자부심의 감축, 질투심의 인정, 또는 깊숙하게-자리잡은 편견의 포기를 수반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안전에서의 옛 환상과 안심에서의 오래-간직된 거짓 감정에 매달리기를 더 좋아한다.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진지하고도 논리적인 마음이 발견한 것을, 기꺼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마주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효력적인 해결은 마음이, 문제 자체에 해법을 제시하면서 문제들 가꾸며 나가도록 하는 실재적 요소들을 냉정하게 조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를 편견, 정열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그 밖의 모든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요구한다. 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용기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오직 정직하고 용감한 개별존재만이, 당황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삶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두려움 없는 마음의 논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용감하게 따라갈 수 있다. 마음과 혼의 이러한 해방은 종교적 열정과 경계가 닿아있는 지능적 열심의 추진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려운 물질적 문제들과 다양한 지적 위험들로 둘러싸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곳에서 사람을 기운차게 움직이게 하려면

never worry, neither do they commit suicide. Suicide among men testifies that such beings have emerged from the purely animal stage of existence, and to the further fact that the exploratory efforts of such human beings have failed to attain the artistic levels of mortal experience. Animals know not the meaning of life; man not only possesses capacity for the recognition of values and the comprehension of meanings, but he also is conscious of the meaning of meanings — he is self-conscious of insight.

160:1.6 (1773.3) When men dare to forsake a life of natural craving for one of adventurous art and uncertain logic, they must expect to suffer the consequent hazards of emotional casualties — conflicts, unhappiness, and uncertainties — at least until the time of their attainment of some degree of intellectual and emotional maturity. Discouragement, worry, and indolence are positive evidence of moral immaturity. Human society is confronted with two problems: attainment of the maturity of the individual and attainment of the maturity of the race. The mature human being soon begins to look upon all other mortals with feelings of tenderness and with emotions of tolerance. Mature men view immature folks with the love and consideration that parents bear their children.

160:1.7 (1773.4) Successful living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e art of the mastery of dependable techniques for solving common problems. The first step in the solution of any problem is to locate the difficulty, to isolate the problem, and frankly to recognize its nature and gravity. The great mistake is that, when life problems excite our profound fears, we refuse to recognize them. Likewise, when the acknowledgment of our difficulties entails the reduction of our long-cherished conceit, the admission of envy, or the abandonment of deep-seated prejudices, the average person prefers to cling to the old illusions of safety and to the long-cherished false feelings of security. Only a brave person is willing honestly to admit, and fearlessly to face, what a sincere and logical mind discovers.

160:1.8 (1773.5) The wise and effective solution of any problem demands that the mind shall be free from bias, passion, and all other purely personal prejudices which might interfere with the disinterested survey of the actual factors that go to make up the problem presenting itself for solution. The solution of life problems requires courage and sincerity. Only honest and brave individuals are able to follow valiantly through the perplexing and confusing maze of living to where the logic of a fearless mind may lead. And this emancipation of the mind and soul can never be effected without the driving power of an intelligent enthusiasm which borders on religious zeal. It requires the lure of a great ideal to drive man on in the pursuit of a

위대한 이상의 매혹이 필요하다.

너희가 일생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로부터 하여금 너희 동료들로부터 가슴에서 우러난 지지와 협조를 얻게 만들, 그 마음의 지혜와 개인성의 매력으로 갖추지 않으면 너희는 성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동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현실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아무 일에도 너희가 크게 성공할 희망은 없다. 너희는 다만 재치와 관대함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주(主)이신 예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가 늘 행하고 또 너희들에게도 엄중하게 가르치셨던 것으로, 경건한 묵상을 위하여 고립되는 것이다. 자주 혼자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한 예수의 실천 관행 속에서 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삶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 성질의 보다 높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개인성에서의 선천적인 손상을 보충하지는 않으며, 참된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부재(不在)를 보상하지도 않는다.

혼자 따로 가서 삶의 문제들을 한동안 홀로 살펴본다; 사회적인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구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새로이 저장하기 위해 애쓰신다; 신성과의 접촉을 의식하도록 전체 개인성을 실제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삶의 최극의 목적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킨다; 항상 변화하는 살아가는 실존의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새롭고 훌륭한 방법들을 소유하고자 하신다; 보람되고 실제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자신의 개인적 태도의 생생한 재-구축과 재-조절을 달성하고자 하신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목적으로—너희의 주(主)께서 성실한 태도로 즐겨 하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예수의 습관에 나는 큰 인상을 받았다.

너희의 주(主)의 경배하는 실천 관행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완-휴식을 가져오며; 혼이 고무되도록 빛을 비추며; 자기 문제들에 과감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용기를 준다; 그리고 쇠약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자아-납득을 가져 온다; 그리고 사람이 감히 하느님과-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는, 신성과의 연합에 대한 의식을 가져 온다. 경배에서의 이완-휴식 또는 주(主)가 한 것과 같은 영적 교제는 긴장을 해소시키며, 갈등을 없애 주고, 개인성의 모든 자원들을 대단히 증강시켜 준다. 그리고 왕국 복음에 덧붙여진 이 모든 원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새 종교를 구성하고 있다.

goal which is beset with difficult material problems and manifold intellectual hazards.

160:1.9 (1774.1) Even though you are effectively armed to meet the difficult situations of life, you can hardly expect success unless you are equipped with that wisdom of mind and charm of personality which enable you to win the hearty support and co-operation of your fellows. You cannot hope for a large measure of success in either secular or religious work unless you can learn how to persuade your fellows, to prevail with men. You simply must have tact and tolerance.

160:1.10 (1774.2) But the greatest of all methods of problem solving I have learned from Jesus, your Master. I refer to that which he so consistently practices, and which he has so faithfully taught you, the isolation of worshipful meditation. In this habit of Jesus' going off so frequently by himself to commune with the Father in heaven is to be found the technique, not only of gathering strength and wisdom for the ordinary conflicts of living, but also of appropriating the energy for the solution of the higher problems of a moral and spiritual nature. But even correct methods of solving problems will not compensate for inherent defects of personality or atone for the absence of the hunger and thirst for true righteousness.

160:1.11 (1774.3) I am deeply impressed with the custom of Jesus in going apart by himself to engage in these seasons of solitary survey of the problems of living; to seek for new stores of wisdom and energy for meeting the manifold demands of social service; to quicken and deepen the supreme purpose of living by actually subjecting the total personality to the consciousness of contacting with divinity; to grasp for possession of new and better methods of adjusting oneself to the ever-changing situations of living existence; to effect those vital reconstructions and readjustments of one's personal attitudes which are so essential to enhanced insight into everything worth while and real; and to do all of this with an eye single to the glory of God — to breathe in sincerity your Master's favorite prayer,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160:1.12 (1774.4) This worshipful practice of your Master brings that relaxation which renews the mind; that illumination which inspires the soul; that courage which enables one bravely to face one's problems; that self-understanding which obliterates debilitating fear; and that consciousness of union with divinity which equips man with the assurance that enables him to dare to be Godlike. The relaxation of worship, or spiritual communion as practiced by the Master, relieves tension, removes conflicts, and mightily augments the total resources of the personality. And all this philosophy, plus the gospel of the

선입견은 혼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다, 그리고 선입견은 자기 동료 사람들의 모든 것을-포용하고 모든 것을-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원인을 찬미하는 데에 헌신하는 혼의 진지한 헌신으로만 없앨 수 있다. 선입견은 이기주의와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다. 선입견은 오직 자아-추구의 포기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자아보다 위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성보다도 위대한 어떤 하나의 원인의 봉사에서의 만족에 대한 탐구—하느님을 향한 탐색, 신성의 달성—가 대치함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개인성이 성숙하였다는 증거는 최고로 그리고 가장 신성하게 실체인 그러한 가치들의 실현을 위하여 것처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 욕망의 변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 계층이 진화하는 중에, 확립되고 고정된 운명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성의 안정성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무한한 달성의 영원한 목적지로서 발견하고 터득하였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적지를 유한한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인간의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옮기는 데에는 그의 개심, 전환,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신성한 영의 자녀로 다시 창조되어야만 한다; 하늘의 왕국의 형제신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 개념들이 부족한 모든 철학들과 종교들은 아직 미성숙된 상태이다.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너희가 전파하는, 장차 올 모든 세대들의 이상(理想), 그 성숙된 새로운 종교를 대표하는, 복음과 연결된다. 이러한 설명이 참된 것은 우리의 이상이 최종적이며 틀림없으며, 영원하며, 우주적이며, 절대적이며, 무한하기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진실한 달성의 실체들, 성숙의 목표를 수색하도록 나에게 충동을 주었다. 그러나 나의 충동은 무기력하였다; 나의 수색은 추진력이 부족하였다; 나의 탐색은 방향성구현에서의 확실성의 부재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이들 결핍들은 예수의 새로운 복음에 의하여 통찰력의 향상, 이상의 제고(提高), 목표의 확립과 함께 풍성하게 공급되었다. 나는 이제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이 전심으로 영원한 모험에 들어갈 수 있다.

제 2 장. 삶의 기술

사람들이 같이 사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물질적 혹은 동물적인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혹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동물들도 신호나 소리로 제한된 한도 내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교통은 의미나 가치 또는 관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의 한 가지 차이점은 사람만이 의미, 가

kingdom, constitutes the new religion as I understand it.

160:1.13 (1774.5) Prejudice blinds the soul to the recognition of truth, and prejudice can be removed only by the sincere devotion of the soul to the adoration of a cause that is all-embracing and all-inclusive of one's fellow men. Prejudice is inseparably linked to selfishness. Prejudice can be eliminated only by the abandonment of self-seeking and by substituting therefor the quest of the satisfaction of the service of a cause that is not only greater than self, but one that is even greater than all humanity — the search for God, the attainment of divinity. The evidence of maturity of personality consists i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desire so that it constantly seeks for the realization of those values which are highest and most divinely real.

160:1.14 (1774.6) In a continually changing world, in the midst of an evolving social order,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settled and established goals of destiny. Stability of personality can be experienced only by those who have discovered and embraced the living God as the eternal goal of infinite attainment. And thus to transfer one's goal from time to eternity, from earth to Paradise,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requires that man shall become regenerated, converted, be born again; that he shall become the re-created child of the divine spirit; that he shall gain entrance into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All philosophies and religions which fall short of these ideals are immature. The philosophy which I teach, linked with the gospel which you preach, represents the new religion of maturity, the ideal of all future generations. And this is true because our ideal is final, infallible, eternal, universal, absolute, and infinite.

160:1.15 (1775.1) My philosophy gave me the urge to search for the realities of true attainment, the goal of maturity. But my urge was impotent; my search lacked driving power; my quest suffered from the absence of certainty of directionization. And these deficiencies have been abundantly supplied by this new gospel of Jesus, with its enhancement of insights, elevation of ideals, and settledness of goals. Without doubts and misgivings I can now wholeheartedly enter upon the eternal venture.

2. THE ART OF LIVING

160:2.1 (1775.2) There are just two ways in which mortals may live together: the material or animal way and the spiritual or human way. By the use of signals and sounds animals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 limited way. But such forms of communication do not convey meanings, values, or ideas. The one distinction between man and the animal is that man can

치, 관념 그리고 심지어는 이상들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의 동료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서로 관념을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성을 발현시킬 수 없다. 사람은 관념뿐만 아니라 이상을 동료들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성을 발전시킨다.

사람에게 사회적인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문명을 이룩하게 하고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이 힘이다. 지식과 지혜는 누적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통을 통하여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민족의 문화적 활동, 예술, 과학, 종교, 철학들이 발생한다.

인간 존재들 사이에서의 상징적인 교통은 사회 집단들의 실체가 생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집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족이며, 더 자세하게는 두 분 부모들이다. 개인적 애정은 이들 물질적 연합들을 함께 유지하고 있는 영적 결속력이다. 그러한 효과적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헌신에서 아주 풍부하게 묘사되는 그대로, 그렇게 같은 성(性)의 두 개인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우정과 상호 애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들 관계적-연합들은 그들이 삶의 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아래와 같은 기본 요소들을 조장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화되어 가고 고상하게 되어간다:

1. 상호적인 자아-표현과 자아-납득. 훌륭한 많은 인간들의 추진력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 버린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인간 성격 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집에 있어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격 개발은 온전히 성취될 수 없다. 성격은 단순히 마음이나 도덕보다도 더 큰 그 무엇이다. 성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관계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적인 결혼생활에서의 서로간의 포옹 안에서 애정이 넘치고 그리고 납득하는 친구관계이다. 결혼은, 그 각가지 관계와 함께, 강한 성격을 개발하기에 필수불가결한 보다 높은 동기들과 귀중한 추진력들을 가져오도록 최상으로 설계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찬미하는데, 왜냐하면 너희의 주(主)께서 새로운 이 왕국 복음의 주춧돌로서 아버지-아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시간의 가장 높은 이상들을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그러한 관계의 공동체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체험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 소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 어떤 희생, 또는 어떤 대가(代價)라도 치러야 한다.

communicate with his fellows by means of *symbols* which most certainly designate and identify meanings, values, ideas, and even ideals.

160:2.2 (1775.3) Since animals cannot communicate ideas to each other, they cannot develop personality. Man develops personality because he can thus communicate with his fellows concerning both ideas and ideals.

160:2.3 (1775.4) It is this ability to communicate and share meanings that constitutes human culture and enables man, through social associations, to build civilizations. Knowledge and wisdom become cumulative because of man's ability to communicate these possessions to succeeding generations. And thereby arise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race: art, science, religion, and philosophy.

160:2.4 (1775.5) Symbolic communication between human beings predetermines the bringing into existence of social groups. The most effective of all social groups is the family, more particularly the *two parents*. Personal affection is the spiritual bond which holds together these material associations. Such an effective relationship is also possible between two persons of the same sex, as is so abundantly illustrated in the devotions of genuine friendships.

160:2.5 (1775.6) These associations of friendship and mutual affection are socializing and ennobling because they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following essential factors of the higher levels of the art of living:

160:2.6 (1775.7) 1. *Mutual self-expression and self-understanding*. Many noble human impulses die because there is no one to hear their expression. Truly,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Some degree of recognition and a certain amount of appreciation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haracter. Without the genuine love of a home, no child can achieve the full development of normal character. Character is something more than mere mind and morals. Of all social relations calculated to develop character, the most effective and ideal is the affectionate and understanding friendship of man and woman in the mutual embrace of intelligent wedlock. Marriage, with its manifold relations, is best designed to draw forth those precious impulses and those higher motives which are indispensable to the development of a strong character. I do not hesitate thus to glorify family life, for your Master has wisely chosen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as the very cornerstone of this new gospel of the kingdom. And such a matchless community of relationship, man and woman in the fond embrace of the highest ideals of time, is so valuable and satisfying an experience that it is worth any price, any sacrifice, requisite for its possession.

2. 혼들의 연합—지혜의 운용. 모든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과 다음 세계에 대한 어떤 환상을 곧 획득한다. 일시적인 실존의 관찰과 영원한 전망을 연합하는 것이 개인성 관계적-연합을 통하여 이제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통찰력을 많이 얻음으로써 그 영적 가치를 증강시킨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영적 재산을 모음으로써 혼을 풍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야의 왜곡, 관점의 편견, 그리고 판단의 편협으로 희생자가 되는, 그 항상 존재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자만은 다른 마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 나는 주(主)께서 너희를 왕국 확장을 위한 사명활동에 내 보낼 때 절대로 혼자서 가지 않도록 한 사실에 너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主)는 항상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그리고 지혜는 초(超)지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들이 작든지 크든지, 지혜와 연합할 때 모든 지식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

3. 삶에 대한 열렬한 정성. 고립은 혼의 충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과의 관계적-연합은 삶에 대한 묘미를 새롭게 하는데 필수적이며 더욱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때 따라오는 인간 삶의 투쟁들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우정은 기쁨을 강화하고 일생의 승리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 사랑이 있고 그리고 친밀한 인간 관계적-연합은 그 쓰라림의 많은 슬픔과 고초의 괴로움을 깨끗이 닦아 없애는 경향이 있다. 친구의 현존은 모든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모든 선을 드높인다. 사람은 지적 상징들에 의해 친구들을 깊이 이해하는 수용능력을 촉진하고 커지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우정에 대한 최고의 기쁨 중의 하나는 상상력이 서로 동조될 수 있는 이러한 힘과 가능성이다. 조화우주 신(神)에 대해 서로 충실한, 하나의 공동 전선에 전심으로 바쳐진 의식 속에 엄청난 영적 힘이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

4.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강화된 방어. 개인성 관계적-연합과 상호 애정이, 악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대비책이다. 어려움, 슬픔, 실망, 패배를 혼자서 견딜 때에는 더욱 고통스럽고 낙담이 된다. 연합 자체가 악을 정의로 변질하지는 않지만, 찌르는 아픔을 크게 줄어줄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너희의 주(主)는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한다.—위로할 친구가 옆에 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살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복지와 향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긍정적인 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고독 안에서는 시들어간다. 인간 존재들은 시간의 일시적 활동행위만을 바라볼 때, 어김없이 낙심하게 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분통이 터지도록 하찮은 것이 된다. 영원의 순환계를 어렴풋이 감지하기만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며 그의 안에 있는 최선이 그것의 최대한을 행하는데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그의 최선을 다

160:2.7 (1776.1) 2. *Union of souls — the mobilization of wisdom.* Every human being sooner or later acquires a certain concept of this world and a certain vision of the next. Now it is possible, through personality association, to unite these views of temporal existence and eternal prospects. Thus does the mind of one augment its spiritual values by gaining much of the insight of the other. In this way men enrich the soul by pooling their respective spiritual possessions. Likewise, in this same way, man is enabled to avoid that ever-present tendency to fall victim to distortion of vision, prejudice of viewpoint, and narrowness of judgment. Fear, envy, and conceit can be prevented only by intimate contact with other minds. I call you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aster never sends you out alone to labor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he always sends you out two and two. And since wisdom is superknowledge, it follows that, in the union of wisdom, the social group, small or large, mutually shares all knowledge.

160:2.8 (1776.2) 3. *The enthusiasm for living.* Isolation tends to exhaust the energy charge of the soul. Association with one's fellows is essential to the renewal of the zest for life and is indispensable to the maintenance of the courage to fight those battles consequent upon the ascent to the higher levels of human living. Friendship enhances the joys and glorifies the triumphs of life. Loving and intimate human associations tend to rob suffering of its sorrow and hardship of much of its bitterness. The presence of a friend enhances all beauty and exalts every goodness. By intelligent symbols man is able to quicken and enlarge the appreciative capacities of his friends. One of the crowning glories of human friendship is this power and possibility of the mutual stimulation of the imagination. Great spiritual power is inherent in the consciousness of wholehearted devotion to a common cause, mutual loyalty to a cosmic Deity.

160:2.9 (1776.3) 4. *The enhanced defense against all evil.* Personality association and mutual affection is an efficient insurance against evil. Difficulties, sorrow, disappointment, and defeat are more painful and disheartening when borne alone. Association does not transmute evil into righteousness, but it does aid in greatly lessening the sting. Said your Master, “Happy are they who mourn” — if a friend is at hand to comfort. There is positive strength in the knowledge that you live for the welfare of others, and that these others likewise live for your welfare and advancement. Man languishes in isolation. Human beings unfailingly become discouraged when they view only the transitory transactions of time. The present, when divorced from the past and the future, becomes exasperatingly trivial. Only a glimpse of the circle of eternity can inspire man to do his best and can challenge the best in him to do

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이들의 선, 시간과 영원 안에 있는 그의 동료 거주자들의 선을 위하여 가장 사심-없이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감을 주고 고상하게 하는 이러한 관계적-연합은 인간의 결혼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결혼을 통하여 얻어지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러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철저히 실패한다. 인간 성숙을 가져오는 이러한 우월한 동반보다는, 더 낮은 어떤 다른 가치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이상적인 결혼은 오르내리는 정서와 변하기 쉬운 성적 이끌림보다는 더 안정된 어떤 것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진실 되고 상호적인 개인의 헌신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너희가 그러한 신뢰할만하고 효력적인 인간 공동체의 작은 단위들을 조성할 수가 있다면, 이것들이 모여 집단을 이룰 때, 세상은 장엄하고 영화로운 사회 구조, 필사자의 성숙된 문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민족은 “땅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라는 너희의 주(主)가 가지신 이상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완전하다거나 악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숙으로 인한 안정에 도달할 것이다.

its utmost. And when man is thus at his best, he lives most unselfishly for the good of others, his fellow sojourners in time and eternity.

160:2.10 (1777.1) I repeat, such inspiring and ennobling association finds its ideal possibilities in the human marriage relation. True, much is attained out of marriage, and many, many marriages utterly fail to produce these moral and spiritual fruits. Too many times marriage is entered by those who seek other values which are lower than these superior accompaniments of human maturity. Ideal marriage must be founded on something more stable than the fluctuations of sentiment and the fickleness of mere sex attraction; it must be based on genuine and mutual personal devotion. And thus, if you can build up such trustworthy and effective small units of human association, when these are assembled in the aggregate, the world will behold a great and glorified social structure, the civilization of mortal maturity. Such a race might begin to realize something of your Master's ideal of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While such a society would not be perfect or entirely free from evil, it would at least approach the stabilization of maturity.

제 3 장. 성숙의 매혹들

성숙을 향한 노력에는 일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물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생각되겠지만, 주(主)께서 바로 말씀하였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정상적인 육체와 상당히 좋은 건강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사람의 수면하고 있는 영적 기세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으로 활동할 유혹들을 찾아야만 한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사람 속에 살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여 이러한 신성과 무한의 혼에-묶여진 힘을 풀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하느님, 그가 솟아올라 우리 자신의 혼을 일깨워 새롭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밖을 향해 이동하며 그리고는 수 없이 많은 다른 혼들을 깨우치고, 들어올리고, 축복하려는 목적으로 봉사할지도 모를, 그러한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너희의 혼속에 동면하고 있는 이 잠재 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깨우겠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정적인 흥분은 이상적인 영적 자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흥분은 에너지를 증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과 육체 모두의 힘을 소모시킨다. 그렇다면 이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너희의 주(主)를 바라보자. 우리들이 여기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언덕에 오르셔서 힘을 취하고 계시다. 이 모든 문제의 비밀은 영적 교체, 경배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연관된 명상과 이완-휴식이다. 명상은 마음과 영이 접촉하도록 한다; 이완-휴식은 영적 접수성의 수용능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한 힘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자아의 마음을 하느

3. THE LURES OF MATURITY

160:3.1 (1777.2) The effort toward maturity necessitates work, and work requires energy. Whence the power to accomplish all this? The physical things can be taken for granted, but the Master has well said, “Man cannot live by bread alone.” Granted the possession of a normal body and reasonably good health, we must next look for those lures which will act as a stimulus to call forth man's slumbering spiritual forces. Jesus has taught us that God lives in man; then how can we induce man to release these soul-bound powers of divinity and infinity? How shall we induce men to let go of God that he may spring forth to the refreshment of our own souls while in transit outward and then to serve the purpose of enlightening, uplifting, and blessing countless other souls? How best can I awaken these latent powers for good which lie dormant in your souls? One thing I am sure of: Emotional excitement is not the ideal spiritual stimulus. Excitement does not augment energy; it rather exhausts the powers of both mind and body. Whence then comes the energy to do these great things? Look to your Master. Even now he is out in the hills taking in power while we are here giving out energy. The secret of all this problem is wrapped up in spiritual communion, in worship. From the human standpoint it is a question of combined meditation and relaxation. Meditation makes the contact of mind with spirit; relaxation determines the capacity for spiritual receptivity. And this interchange of strength for weakness, courage for fear, the will of

님의 뜻으로 교체하는 이것이 경배를 이룬다. 적어도 이것이 철학자가 그것을 보는 길이다.

이 체험들이 자주 반복되면 습관, 힘을-주는 경건한 습관으로 결정화되며, 그리고 그러한 습관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적 성격을 조성해 주며, 그러한 성격은 동료들에 의해 성숙한 개인성으로 인정받는다. 이 실천 관행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습관적이 되면, 곧 편안해지고 시간이 적게 든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문명의 애착이 배가 될수록, 하느님을-아는 개별존재들이 그들의 영적 에너지들을 보전하고 증강시키도록 고안된 그러한 보호적인 습성들을 형성할 필요성이 더욱 다급해지게 될 것이다.

성숙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環境)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집단들의 협조적(協調的)인 적응이다. 성숙되지 못한 개별 존재는 자기 연관-동료들에 대하여 반목을 키우며; 성숙된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난 협조를 하여 일생의 노력에 대한 여러 배의 결실을 얻는다.

나의 철학은, 정의(正義)에 대한 나의 개념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싸워야만 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반면에 주(主)는 개인성에서의 보다 성숙된 유형으로써, 재치와 관용의 우월하고 매력 있는 기법으로 쉽고도 은혜롭게 똑같은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정의(正義)를 위하여 싸울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승리자와 패배자 둘 모두 좌절을 체험한다. 나는 주(主)가 바로 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잠긴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때, 현명한 자는 그 문을 부수기보다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 할 것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단지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려고 싸움에 빠지곤 한다.

이 새로운 왕국의 복음은 더욱 높은 삶을 위한 하나의 새롭고도 더욱 값진 격려를 준다는 점에서 삶의 예술에 엄청난 봉사를 제공한다. 그것은 운명의 새롭고도 드높여진 목표, 최극적 일생 목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존의 영원하고 신성한 목표에 대한 이들 새로운 개념들은 그 스스로가, 사람의 더욱 높은 본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최선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초월적 자극이다. 기능적 생각의 모든 산꼭대기에는 마음을 위한 이완-휴식, 혼을 위한 강한 힘, 영을 위한 교제가 발견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삶의 그러한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사람은 생각의 낮은 차원—염려, 질투, 시기, 원한, 상속되지 못한 개인성의 자부심—에서의 물질적 짜증스러움을 초월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이 상승하는 혼들은 삶의 사소한 일들의 역류시키는 갈등들의 군집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며, 그리하여 영 개념과 천상의 교통의 더욱 높은 흐름의 의식을 달성하려고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일생 목적은 쉽고 그리고 과도기적인 달성을 추구하는 유혹으로부터 부지런히

God for the mind of self, constitutes worship. At least, that is the way the philosopher views it.

160:3.2 (1777.3) When these experiences are frequently repeated, they crystallize into habits, strength-giving and worshipful habits, and such habits eventually formulate themselves into a spiritual character, and such a character is finally recognized by one's fellows as a *mature personality*. These practices a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at first, but when they become habitual, they are at once restful and timesaving. The more complex society becomes, and the more the lures of civilization multiply, the more urgent will become the necessity for God-knowing individuals to form such protective habitual practices designed to conserve and augment their spiritual energies.

160:3.3 (1778.1) Another requirement for the attainment of maturity is the co-operative adjustment of social groups to an ever-changing environment. The immature individual arouses the antagonisms of his fellows; the mature man wins the hearty co-operation of his associates, thereby many times multiplying the fruits of his life efforts.

160:3.4 (1778.2) My philosophy tells me that there are times when I must fight, if need be, for the defense of my concept of righteousness, but I doubt not that the Master, with a more mature type of personality, would easily and gracefully gain an equal victory by his superior and winsome technique of tact and tolerance. All too often, when we battle for the right, it turns out that both the victor and the vanquished have sustained defeat. I heard the Master say only yesterday that the “wise man, when seeking entrance through the locked door, would not destroy the door but rather would seek for the key wherewith to unlock it.” Too often we engage in a fight merely to convince ourselves that we are not afraid.

160:3.5 (1778.3) This new gospel of the kingdom renders a great service to the art of living in that it supplies a new and richer incentive for higher living. It presents a new and exalted goal of destiny, a supreme life purpose. And these new concepts of the eternal and divine goal of existence are in themselves transcendent stimuli, calling forth the reaction of the very best that is resident in man's higher nature. On every mountaintop of intellectual thought are to be found relaxation for the mind, strength for the soul, and communion for the spirit. From such vantage points of high living, man is able to transcend the material irritations of the lower levels of thinking — worry, jealousy, envy, revenge, and the pride of immature personality. These high-climbing souls deliver themselves from a multitude of the crosscurrent conflicts of the trifles of living, thus becoming free to attain consciousness of the higher currents of spirit concept and celestial

수호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일생 목적은 광신 주의의 제앙을 일으키는 위협들에 면역성을 갖추기까지 육성되어야만 한다.

communication. But the life purpose must be jealously guarded from the temptation to seek for easy and transient attainment; likewise must it be so fostered as to become immune to the disastrous threats of fanaticism.

제 4 장. 성숙의 균형

너희는 영원한 실체들을 달성하려고 성실히 목표를 삼고 있지만, 현세적인 삶에 필수적인 것들도 준비해야만 한다. 영이 우리의 목적지인 반면, 육체는 사실이다. 삶의 필수품들이 우연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영리하게 일해야만 한다. 일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주요 문제는: 현세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것과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이루어가는 문제에서 참으로 이상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둘 모두 매우 개인적 문제들이다. 참 종교는 개별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현세적인 일생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육신적으로 강건함
2. 분명하고 깨끗한 생각
3. 힘과 기술
4. 부—일생에서의 필요한 물품들
5. 좌절을 견디는 힘
6. 문화—교육과 지혜

육신의 건강과 능률에 관한 물리적 문제들일 지라도 우리 주(主)가 가르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의 육체와 마음은 하느님들의 선물, 사람의 영이 되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 실체 사이의 중재자(仲裁者)가 된다.

일생에서 바람직한 것들을 자신의 몫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지능이 필요하다. 자신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신실하기만 하면 재물의 보상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실수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또는 우연히 부를 획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세적인 일생의 물질적 보상은 어떤 확실한 잘 조직된 경로 안에서 흐르는 것이 발견되며, 이 경로들에 접속하는 자들만이 그들의 현세적인 노력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립되거나 개별적인 경로들 속에서 부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이 세계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것이다. 성공은 자기 일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물질적 부의 어느 한 경로에서 한 부분으로 활동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현명하지 못하면, 너희가 일생동안 헌신적인 일생을 살아도 물질적인 보상이 없을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부의

4. THE BALANCE OF MATURITY

160:4.1 (1778.4) While you have an eye single to the attainment of eternal realities, you must also make provision for the necessities of temporal living. While the spirit is our goal, the flesh is a fact. Occasionally the necessities of living may fall into our hands by accident, but in general, we must intelligently work for them. The two major problems of life are: making a temporal living and the achievement of eternal survival. And even the problem of making a living requires religion for its ideal solution. These are both highly personal problems. True religion, in fact, does not function apart from the individual.

160:4.2 (1778.5) The essentials of the temporal life, as I see them, are:

- 160:4.3 (1778.6) 1. Good physical health.
- 160:4.4 (1778.7) 2. Clear and clean thinking.
- 160:4.5 (1778.8) 3. Ability and skill.
- 160:4.6 (1778.9) 4. Wealth — the goods of life.
- 160:4.7 (1778.10) 5. Ability to withstand defeat.
- 160:4.8 (1778.11) 6. Culture — education and wisdom.

160:4.9 (1779.1) Even the physical problems of bodily health and efficiency are best solved when they are viewed from the religious standpoint of our Master's teaching: That the body and mind of man are the dwelling place of the gift of the Gods, the spirit of God becoming the spirit of man. The mind of man thus becomes the mediator between material things and spiritual realities.

160:4.10 (1779.2) It requires intelligence to secure one's share of the desirable things of life. It is wholly erroneous to suppose that faithfulness in doing one's daily work will insure the rewards of wealth. Barring the occasional and accidental acquirement of wealth, the material rewards of the temporal life are found to flow in certain well-organized channels, and only those who have access to these channels may expect to be well rewarded for their temporal efforts. Poverty must ever be the lot of all men who seek for wealth in isolated and individual channels. Wise planning, therefore, becomes the one thing essential to worldly prosperity. Success requires not only devotion to one's work but also that one should function as a part of some one of the channels of material wealth. If you are unwise, you can bestow a devoted life upon your generation without

흐름으로부터 우연히 수익을 얻었다면, 너희의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치 속에 빈둥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은 선천적이지만 한편, 기술은 습득하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를 숙달될 정도로 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일생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기술은 만족한 삶의 실제 근원 중의 하나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선견(先見),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지닌 재능을 뜻한다. 정직하지 않은 성취의 그 유혹하는 보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정직한 노력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그 훗날의 보상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라. 현명한 자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계획이 그 자체의 높은 목적을 좌절시킨다. 즐거움을 찾는 자로서, 너희가 즐거움의 소비자인 것처럼, 항상 그러한 생산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너희가 자신의 기쁨과 계몽을 위해 뜻대로 회상할 수 있는, 강함을-주고 가치를-지닌 일생의 에피소드들을, 성스러운 믿음으로 지니도록 너희의 기억을 단련시켜라. 그리하여 너희들 자신 속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움(美), 선(善), 그리고 예술적 장관의 저장 전시관을 구축하여라. 그러나 모든 기억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비할 데 없는 우정을 나눈 위대한 순간에 대한 보배로운 회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 속의 보배들은 영적 경배의 해방하는 손길 밑에서 가장 귀중하고 드높이는 효력을 방출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실패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삶은 현실적 실존의 짐이 될 것이다. 좌절에는 고귀한 훈이 반드시 습득하는 어떤 예술이 들어있다; 너희는 당당하게 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너희는 실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말라. 속이는 미소와 낙천적인 태도로 애써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라. 성공을 공언하는 것은 항상 듣기 좋지만, 마지막 결과는 끔찍하다. 그러한 기법은 직접적으로 비현실의 세계를 창조하도록 이끌고 또한 궁극적 망상의 필연적 파멸로 이끌어 간다.

성공이 용기를 낳고 자신감을 증대시켜 주기는 하지만, 지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실패 결과에 대한 조절의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실체보다 낙관적 환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사실을 마주보고 그것들을 이상에 맞게 조절하는 자만이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지혜는 사실과 이상을 모두 포용하며, 그리하여 철학의 불모의 두 극단—사실을 거부하는 이상주의를 가진 자와 영적 전망이 결여된 물질주의자—으로부터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해 준다. 성공에 대한 계속되는 거짓 환상의 도움에 의해서 일생의 투쟁을 겨우 유지하는 소심한 혼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환상의 세계에 대한 꿈에서 깨어남으로서 결국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

최극 영향을 미치는 긴 안목의 종교적 통찰력

material reward; if you are an accidental beneficiary of the flow of wealth, you may roll in luxury even though you have done nothing worth while for your fellow men.

160:4.11 (1779.3) Ability is that which you inherit, while skill is what you acquire. Life is not real to one who cannot do some one thing well, expertly. Skill is one of the real sources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Ability implies the gift of foresight, farseeing vision. Be not deceived by the tempting rewards of dishonest achievement; be willing to toil for the later returns inherent in honest endeavor. The wise man is able to distinguish between means and ends; otherwise, sometimes overplanning for the future defeats its own high purpose. As a pleasure seeker you should aim always to be a producer as well as a consumer.

160:4.12 (1779.4) Train your memory to hold in sacred trust the strength-giving and worth-while episodes of life, which you can recall at will for your pleasure and edification. Thus build up for yourself and in yourself reserve galleries of beauty, goodness, and artistic grandeur. But the noblest of all memories are the treasured recollections of the great moments of a superb friendship. And all of these memory treasures radiate their most precious and exalting influences under the releasing touch of spiritual worship.

160:4.13 (1779.5) But life will become a burden of existence unless you learn how to fail gracefully. There is an art in defeat which noble souls always acquire; you must know how to lose cheerfully; you must be fearless of disappointment. Never hesitate to admit failure. Make no attempt to hide failure under deceptive smiles and beaming optimism. It sounds well always to claim success, but the end results are appalling. Such a technique leads directly to the creation of a world of unreality and to the inevitable crash of ultimate disillusionment.

160:4.14 (1779.6) Success may generate courage and promote confidence, but wisdom comes only from the experiences of adjustment to the results of one's failures. Men who prefer optimistic illusions to reality can never become wise. Only those who face facts and adjust them to ideals can achieve wisdom. Wisdom embraces both the fact and the ideal and therefore saves its devotees from both of those barren extremes of philosophy — the man whose idealism excludes facts and the materialist who is devoid of spiritual outlook. Those timid souls who can only keep up the struggle of life by the aid of continuous false illusions of success are doomed to suffer failure and experience defeat as they ultimately awaken from the dream world of their own imaginations.

160:4.15 (1780.1) And it is in this business of facing failure and adjusting to defeat that the far-reaching

은 실패에 대처하고 패배에 적응하는 이 일에서 생긴다. 우주를 탐구하려는 영원한 탐험에 동참하여 하느님을-찾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들 중에서, 실패는 다만 하나의 교육적 에피소드—지혜 습득을 연마하는 실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배는 다만 우주 실체의 높은 차원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

하느님을-추구하는 사람의 생애는, 현세의-일생 전체가 실패에 매몰된 것으로 나타난다해도, 제시되는 일생의 실패 각각이 지혜로운 문화와 영적 성취를 낳는다면, 영원의 빛 안에서 볼 때는 하나의 위대한 성공임이 입증될 것이다. 지식, 문화 그리고 지혜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것들이 일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방대하게 서로 다른 영적 가치들을 나타낸다; 지혜는 언제까지나 지식을 지배하고 항상 문화를 영화롭게 한다.

제 5 장. 이상(理想)의 종교

너희의 주(主)가 인간의 참된 종교를 개별 존재의 영적 실체체험으로 간주한다고 너희는 말하였다. 나는 종교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충성과 헌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중요시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의 체험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실체의 이상들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을 나타내는 것과, 영적 달성의 영원한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장 멀리 도달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최극 헌신을 상징화한다.

사람들이 종족,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에 반응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단 밖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충성심의 대상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항상 바라본다. 종교는 단순히 지적인 믿음이나 철학적인 이론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종교는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일생의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다; 행위의 일종이다. 종교는 우리들이 우주적으로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 겸손히 향하는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을 포용한다.

만일에 어떤 것이 너희의 체험 속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면, 너희들 자신이 이미 그 종교의 활발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자아-명백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종교의 최극개념을 모든 사람, 모든 우주 지능 존재들이 경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종교의 적극적이고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너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오로지 전통적인 믿음이거나 단순한 지적 철학 체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너희는 자아-기만에 있는 것이다. 만일 너희의 종교가 영적 체험이라면, 너희의 경배 대상은 너희의 모든 영성화된 개념들의 우주 영 실체이자 그리고 이상이어야만 한다. 두려움, 감정, 전통, 그리고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모

vision of religion exerts its supreme influence. Failure is simply an educational episode — a cultural experiment in the acquirement of wisdom — in the experience of the God-seeking man who has embarked on the eternal adventure of the exploration of a universe. To such men defeat is but a new tool for the achievement of higher levels of universe reality.

160:4.16 (1780.2) The career of a God-seeking man may prove to be a great success in the light of eternity, even though the whole temporal-life enterprise may appear as an overwhelming failure, provided each life failure yielded the culture of wisdom and spirit achievement. Do not make the mistake of confusing knowledge, culture, and wisdom. They are related in life, but they represent vastly differing spirit values; wisdom ever dominates knowledge and always glorifies culture.

5. THE RELIGION OF THE IDEAL

160:5.1 (1780.3) You have told me that your Master regards genuine human religion as the individual's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ies. I have regarded religion as man's experience of reacting to something which he regards as being worthy of the homage and devotion of all mankind. In this sense, religion symbolizes our supreme devotion to that which represents our highest concept of the ideals of reality and the farthest reach of our minds toward eternal possibilities of spiritual attainment.

160:5.2 (1780.4) When men react to religion in the tribal, national, or racial sense, it is because they look upon those without their group as not being truly human. We always look upon the object of our religious loyalty as being worthy of the reverence of all men. Religion can never be a matter of mere intellectual belief or philosophic reasoning; religion is always and forever a mode of reacting to the situations of life; it is a species of conduct. Religion embraces thinking, feeling, and acting reverently toward some reality which we deem worthy of universal adoration.

160:5.3 (1780.5) If something has become a religion in your experience, it is self-evident that you already have become an active evangel of that religion since you deem the supreme concept of your religion as being worthy of the worship of all mankind, all universe intelligences. If you are not a positive and missionary evangel of your religion, you are self-deceived in that what you call a religion is only a traditional belief or a mere system of intellectual philosophy. If your religion is a spiritual experience, your object of worship must be the universal spirit reality and ideal of all your spiritualized concepts. All religions based on fear, emotion, tradition, and philosophy I term the

든 종교들을 나는 지적 종교라고 부르며, 반면에 영적 체험에 기초하는 종교들을 참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종교적 헌신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영적이거나, 진실된 또는 거짓된 것이거나, 실제이거나 또는 실체가 아니거나, 인간적 또는 신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들은 선하든지 또는 악할 수 있다.

도덕과 종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도덕의 체계들은 경배의 대상을 터득함으로써 종교가 될 수 있다. 종교는 충성심과 최극 헌신에 대한 우주적 호소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철학 체계 또는 도덕의 규범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질, 존재, 상태 또는 실존의 계층, 혹은 종교적 충성심의 최극 이상을 구성하는 달성의 가능성,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받는 자, 이것이 하느님이다. 영적 실체에 대한 이 이상(理想)에 붙여지는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는 하느님이시다.

참 종교의 사회적인 특징은 개별존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모시키는 사실들 속에 있다. 종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곧 문명에서 가장 성숙된 제도들의 가장 높은 사회적 관습 안에서 체현되어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의 알려져 있는 표준들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이상이 실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교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들, 아직 탐험되지 않은 실체들, 초인간적 가치들, 신성한 지혜, 그리고 참된 영의 달성으로 뻗어 이른다. 참 종교는 이러한 것 모두를 성취한다; 그 외의 다른 모든 믿음은 그 이름의 가치가 없다.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그리고 숭고한 이상이 없이는, 너희는 참된 영적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 하느님이 없는 종교는 하나의 사람의 발명품이요, 생명 없는 지적 믿음이자 의미 없는 감성적 예식으로 이루어진 인간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가 그 헌신의 대상으로 위대한 이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非)실체의 이상들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한 개념은 착각이다. 인간적 달성을 민감하게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상은 영원한 하느님에 대한 영적 사실 안에 거하는, 무한한 가치의 신성한 실체들이다.

하느님이라는 단어, 하느님에 대한 이상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그 종교가 미숙할 가능성 또는 거짓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종교에서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관념은 그것을 품는 사람들이 만들기로 선택하는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다. 하급 종교들은 인간의 가슴의 자연 상태에 맞도록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형성한다; 상급 종교들은 인간의 가슴이 참 종교의 이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지도록 바뀌기를 원한다.

예수의 종교는 우리들이 이전에 가졌던 경배에 대한 관념의 개념을 초월하는데, 예수는 그 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무한한 실체에 대한 이상(理想)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로 이 땅에서 선택하여, 하느님에게는 아들 관계 그리고 사람에게에는 형제신분을 수락하기로

intellectual religions, while those based on true spirit experience I would term the true religions. The object of religious devotion may be material or spiritual, true or false, real or unreal, human or divine. Religions can therefore be either good or evil.

160:5.4 (1780.6) Morality and religion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A system of morals, by grasping an object of worship, may become a religion. A religion, by losing its universal appeal to loyalty and supreme devotion, may evolve into a system of philosophy or a code of morals. This thing, being, state, or order of existence, or possibility of attainment which constitutes the supreme ideal of religious loyalty, and which is the recipient of the religious devotion of those who worship, is God. Regardless of the name applied to this ideal of spirit reality, it is God.

160:5.5 (1781.1)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a true religion consist in the fact that it invariably seeks to convert the individual and to transform the world. Religion implies the existence of undiscovered ideals which far transcend the known standards of ethics and morality embodied in even the highest social usages of the most mature institutions of civilization. Religion reaches out for undiscovered ideals, unexplored realities, superhuman values, divine wisdom, and true spirit attainment. True religion does all of this; all other beliefs are not worthy of the name. You cannot have a genuine spiritual religion without the supreme and supernal ideal of an eternal God. A religion without this God is an invention of man, a human institution of lifeless intellectual beliefs and meaningless emotional ceremonies. A religion might claim as the object of its devotion a great ideal. But such ideals of unreality are not attainable; such a concept is illusory. The only ideals susceptible of human attainment are the divine realities of the infinite values resident in the spiritual fact of the eternal God.

160:5.6 (1781.2) The word God, the *idea* of God as contrasted with the *ideal* of God, can become a part of any religion, no matter how puerile or false that religion may chance to be. And this idea of God can become anything which those who entertain it may choose to make it. The lower religions shape their ideas of God to meet the natural state of the human heart; the higher religions demand that the human heart shall be chang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ideals of true religion.

160:5.7 (1781.3) The religion of Jesus transcends all our former concepts of the idea of worship in that he not only portrays his Father as the ideal of infinite reality but positively declares that this divine source of values and the eternal center of the universe is truly and personally attainable by every

동의를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가치들의 신성한 근원과 우주의 영원한 중심을 진정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한다. 이것은, 내가 말하건대, 세상에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 개념이며 그리고, 실체들의 무한성, 가치들의 신성, 그리고 우주적 달성들의 영원을 포용하는 이 복음보다 더 높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이러한 개념은 최극과 궁극의 이상주의를 체험하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

나는 너희의 주(主)의 이 종교가 더할 나위 없는 이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 실체들에 대한 이 이상들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그의 선포가 나를 강하게 감동시켜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였다; 그것은 너희와 내가 이 길고도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파라다이스의 입구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主)가 확실히 보장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도 믿는다. 나도 같은 배를 탔다. 이 영원한 모험에 너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다. 주(主)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주(主)가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을 충분히 믿는다. 나는 결국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동떨어져서는, 얻을 수 있는 완전의 가치들 또는 실체의 이상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다만 실존(實在)의 하느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실존(實在) 가능성의 하느님을 경배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최극의 이상을 향한 너희의 헌신은, 그 이상이 실제적인 것이라면, 물질들과 존재들로 구성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주들의 하느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다른 하느님도 없으니, 이는 그 어떤 다른 하느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하느님들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이고, 필사자 마음의 환상이며, 잘못된 논리의 왜곡이며, 그것들을 창작하는 자들의 자아-기만적인 우상들이다. 물론, 너희는 이 하느님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만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 이상의 실체 대신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상의 자리, 신성한 실체 안에 관념을 집어 넣음으로써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게 될 뿐이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최상의 종교를 발견한다. 이 복음은 우리들로 참 하느님을 추구하고 그를 찾도록 해 준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가?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고자, 다시 만들어지고자 하는가? 자아를 버리고 혼을 다시 세워 가는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할 것인가?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혼으로 하여금 투쟁하도록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라.” 그렇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봉헌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 후에, 바쳐진 삶의 영적 경로를 계속 걷도록 하는 엄청난 평화를 우리들은 체험한다.

mortal creature who choose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thereby acknowledging the acceptance of sonship with God and brotherhood with man. That, I submit, is the highest concept of religion the world has ever known, and I pronounce that there can never be a higher since this gospel embraces the infinity of realities, the divinity of values, and the eternity of universal attainments. Such a concept constitutes the achievement of the experience of the idealism of the supreme and the ultimate.

160:5.8 (1781.4) I am not only intrigued by the consummate ideals of this religion of your Master, but I am mightily moved to profess my belief in his announcement that these ideals of spirit realities are attainable; that you and I can enter upon this long and eternal adventure with his assurance of the certainty of our ultimate arrival at the portals of Paradise. My brethren, I am a believer, I have embarked; I am on my way with you in this eternal venture. The Master says he came from the Father, and that he will show us the way. I am fully persuaded he speaks the truth. I am finally convinced that there are no attainable ideals of reality or values of perfection apart from the eternal and Universal Father.

160:5.9 (1781.5) I come, then, to worship, not merely the God of existences, but the God of the possibility of all future existences. Therefore must your devotion to a supreme ideal, if that ideal is real, be devotion to this God of past, present, and future universes of things and beings. And there is no other God, for there cannot possibly be any other God. All other gods are figments of the imagination, illusions of mortal mind, distortions of false logic, and the self-deceptive idols of those who create them. Yes, you can have a religion without this God, but it does not mean anything. And if you seek to substitute the word God for the reality of this ideal of the living God, you have only deluded yourself by putting an idea in the place of an ideal, a divine reality. Such beliefs are merely religions of wishful fancy.

160:5.10 (1782.1) I see in the teachings of Jesus, religion at its best. This gospel enables us to seek for the true God and to find him. But are we willing to pay the price of this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Are we willing to be born again? to be remade? Are we willing to be subject to this terrible and testing process of self-destruction and soul reconstruction? Has not the Master said: “Whoso would save his life must lose it. Think not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but rather a soul struggle”? True, after we pay the price of dedication to the Father's will, we do experience great peace provided we continue to walk in these spiritual paths of consecrated living.

우리는 이제 실존(實在)의 계층으로 알려진 애착들을 정말로 배척하며, 한편으로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보다 높은 이상주의의 영적 세계에서 모험하는 미래 인생의, 알려지지 않고 탐험되지 않은 실존(實在)의 계층에 대한 매혹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에 기꺼이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의 종교의 이상주의의 실체에 대한 이 개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상징들을 찾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최극의 진리를 공동으로 목격함으로써 감동되는 그 날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방금 초점에 맞추어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 가슴 속에 품었던 것처럼,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예수의 종교는 살아 있는 영적 체험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들은 전통적인 신념들, 감정적인 느낌들, 철학적인 자각,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주(主)의 가르침은 영의 참된 진보를 실제적 차원들에서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을 의식하는 것이 참 종교는 아니다. 하느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감정적 느낌도 참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섬기기로 신념을 가지는 지식도 참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다른 모든 것들 중에 최고라는 이론의 지혜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달성되는 운명과 실체는 물론, 전심으로 신앙에서-받아들이는 그것의 실체 그리고 이상주의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의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민족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의 한 사람이며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그리스 철학자의 강연이 끝났다.

160:5.11 (1782.2) Now are we truly forsaking the lures of the known order of existence while we unreservedly dedicate our quest to the lures of the unknown and unexplored order of the existence of a future life of adventure in the spirit worlds of the higher idealism of divine reality. And we seek for those symbols of meaning wherewith to convey to our fellow men these concepts of the reality of the idealism of the religion of Jesus, and we will not cease to pray for that day when all mankind shall be thrilled by the communal vision of this supreme truth. Just now, our focalized concept of the Father, as held in our hearts, is that God is spirit; as conveyed to our fellows, that God is love.

160:5.12 (1782.3) The religion of Jesus demands living and spiritual experience. Other religions may consist in traditional beliefs, emotional feelings, philosophic consciousness, and all of that, but the teaching of the Master requires the attainment of actual levels of real spirit progression.

160:5.13 (1782.4) The consciousness of the impulse to be like God is not true religion. The feelings of the emotion to worship God are not true religion. The knowledge of the conviction to forsake self and serve God is not true religion. The wisdom of the reasoning that this religion is the best of all is not religion as a personal and spiritual experience. True religion has reference to destiny and reality of attainment as well as to the reality and idealism of that which is wholeheartedly faith-accepted. And all of this must be made personal to us by the revelation of the Spirit of Truth.

160:5.14 (1782.5) And thus ended the dissertations of the Greek philosopher, one of the greatest of his race, who had become a believer in the gospel of Jesus.

제 161 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 160

유랜시아 책

16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1 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색션

소개

제 1 장. 하느님의 개인성

제 2 장. 예수의 신성한 본성

제 3 장. 예수의 인간 그리고 신성한 마음
들

PAPER 161

FURTHER DISCUSSIONS WITH
RODA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ersonality of God

2. The Divine Nature of Jesus

3. Jesus' Human and Divine Minds

소개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마가단에 모였다. 그 날 저녁에 연관-동료들과 긴 논의를 한 후에, 다음 날 일찍 열 두 사도들과 함께 천막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겠다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예수는 전도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라고 지도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는 얼마 동안 벳세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도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며칠 동안 더 마가단에 머물러도 좋다는 주(主)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로단이 자신의 철학을 자세히 설명하였던 지난 주 동안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교대로 그 그리스 철학자에게 왕국 복음을 제시하였었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를 가르쳤으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들중의 하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는 것을 말견하였었다.

INTRODUCTION

161:0.1 (1783.1) ON SUNDAY, September 25, A.D. 29,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assembled at Magadan. After a long conference that evening with his associates, Jesus surprised all by announcing that early the next day he and the twelve apostles would start for Jerusalem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He directed that the evangelists visit the believers in Galilee, and that the women's corps return for a while to Bethsaida.

161:0.2 (1783.2) When the hour came to leave for Jerusalem, Nathaniel and Thomas were still in the midst of their discussions with Rodan of Alexandria, and they secured the Master's permission to remain at Magadan for a few days. And so, while Jesus and the ten were on their way to Jerusalem, Nathaniel and Thomas were engaged in earnest debate with Rodan. The week prior, in which Rodan had expounded his philosophy, Thomas and Nathaniel had alternated in present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Greek philosopher. Rodan discovered that he had been well instructed in Jesus' teachings by one of the former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who had been his teacher at Alexandria.

제 1 장. 하느님의 개인성

1. THE PERSONALITY OF GOD

로단과 두 사도들 사이에 다르게 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개인성이었다. 로단은 하느님의 속성에 관하여 제시된 모든 것들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개인성이라고 착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은 하느님이 개인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편 로단도 하느님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여전히 더욱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로단은, 깊이 공감하여 납득할 능력이 있는 동등성에서의 존재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상호간의 교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개인성의 사실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로단은 말했다; “개인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은 자신과 접촉하는 자들이 충분히 납득되기 시작하도록 그 자신을 허용할 수 있는, 영(靈) 교통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다른 창조체들의 창조자이니까, 이 말은 동등성의 존재로서는 하느님은 우주에서 혼자자이시라는 것이다.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 그와 동등한 자로서 교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은 정말로 모든 개인성의 근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는 개인성에 대하여 초월하고 있으며, 이는 창조자가 창조체 위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주장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아주 곤혹스러워졌으며, 예수께 와서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주(主)는 그들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 예수는 도마에게 말해 주었다: “너희가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 본성에 대한 이상을 영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한, 너희가 품을 수 있는 아버지께 대한 관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마는 하느님이 사람과 교통을 하고, 따라서 로단의 정의(定意)에 따른다고 해도, 아버지는 개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인은 이것을 하느님이 자신을 친히 개인성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은 여전히 신비라는 것을 근거로 물리쳤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하느님과 가진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호소하며 다시 반론하자, 로단도 자신이 최근에 비슷한 체험이 있다고 단언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들 체험이 기껏해야 하느님의 실체를 증명한 것이며 그의 개인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월요일 밤이 되자 도마는 포기하였다. 그러나 화요일 밤이 되어서, 나다니엘이 로단을 이기고 아버지의 개인성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단계에 따라서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1.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두 존재, 자신과 충분히 동등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靈)—두 존재와 교통에서의 동등성을 즐기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그리스인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61:1.1 (1783.3) There was one matter on which Rodan and the two apostles did not see alike, and that was the personality of God. Rodan readily accepted all that was presented to him regarding the attributes of God, but he contended that the Father in heaven is not, cannot be, a person as man conceives personality. While the apostles found themselves in difficulty trying to prove that God is a person, Rodan found it still more difficult to prove he is not a person.

161:1.2 (1783.4) Rodan contended that the fact of personality consists in the coexistent fact of full and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beings of equality, beings who are capable of sympathetic understanding. Said Rodan: “In order to be a person, God must have symbols of spirit communication which would enable him to become fully understood by those who make contact with him. But since God is infinite and eternal, the Creator of all other beings, it follows that, as regards beings of equality, God is alone in the universe. There are none equal to him; there are none with whom he can communicate as an equal. God indeed may be the source of all personality, but as such he is transcendent to personality, even as the Creator is above and beyond the creature.”

161:1.3 (1783.5) This contention greatly troubled Thomas and Nathaniel, and they had asked Jesus to come to their rescue, but the Master refused to enter into their discussions. He did say to Thomas: “It matters little what idea of the Father you may entertain as long as you are spiritually acquainted with the ideal of his infinite and eternal nature.”

161:1.4 (1784.1) Thomas contended that God does communicate with man, and therefore that the Father is a person, even within the definition of Rodan. This the Greek rejected on the ground that God does not reveal himself personally; that he is still a mystery. Then Nathaniel appealed to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God, and that Rodan allowed, affirming that he had recently had similar experiences, but these experiences, he contended, proved only the *reality* of God, not his *personality*.

161:1.5 (1784.2) By Monday night Thomas gave up. But by Tuesday night Nathaniel had won Rodan to believe in the personality of the Father, and he effected this change in the Greek's views by the following steps of reasoning:

161:1.6 (1784.3) 1. The Father in Paradise does enjoy e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at least two other beings who are fully equal to himself and wholly like himself —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In view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Greek was compelled to concede the personality

(이들 토론에 대하여 나중에 가졌던 고려가 열 두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삼위일체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끌었다. 물론, 예수가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2.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개인성의 현시활동을 성취했으니까, 그러한 현상은 사실의 증명, 그리고 가능성의 실증, 신격(神格)의 셋 모두에 의한 개인성 소유에 대한 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사람과 교통하는 하느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해결한 것이다.

3. 저 분 예수는 사람과 상호-연관의 관계와 완전한 교통의 관계를 맺었다; 그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교통에서의 동등성과, 깊이 공감하는 납득에서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저 분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저 분 예수는 하느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교통을 동시적으로 납득하였으며, 예수가 교통에 사용한 상징의 의미를 하느님과 사람 모두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상호 교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관계되는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과 사람 둘 모두 개인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분 예수의 개인성은 하느님의 개인성을 실증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은 사람 속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같은 일에 관계되어있는 두 가지 일들은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저 분 개인성은 인간 실체와 신성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저 분 하느님 역시 신성한 실체와 무한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 하느님은,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개념과 정의(定意)를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초월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신성하며 무한한 개인성, 실체로서의 개인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그리고 우주적인 개인성이 틀림없다.

5. 저 분 하느님은 모든 개인성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개인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성이어야만 한다. 로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았었다.

이들 주장을 들었을 때, 로단은 말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 것처럼 초인간적, 초월의, 최극의, 무한한, 영원한, 최종적 그리고 우주적인, 확대된 가치들의 집단을 개인성의 의미에 덧붙이는 것으로, 어떤 그러한 믿음에 대한 나의 고백에 자격을 갖추도록 허락해 준다면, 나는 하느님은 하나의 개인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느님이 개인성보다는 무한히 크심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그 이하의 그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를 아

possibi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t was the later consideration of these discussions which led to the enlarged conception of the Trinity in the minds of the twelve apostles. Of course, it was the general belief that Jesus was the Eternal Son.)

161:1.7 (1784.4) 2. Since Jesus was equal with the Father, and since this Son had achieve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to his earth children, such a phenomenon constituted proof of the fact, and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possession of personality by all three of the Godheads and forever settled the question regarding the ability of God to communicate with man and the possibility of man's communicating with God.

161:1.8 (1784.5) 3. That Jesus was on terms of mutual association and perfect communication with man;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That the relation of Son and Father presupposes equality of communication and mutuality of sympathetic understanding; that Jesus and the Father were one. That Jesus maintained at one and the same time understanding communication with both God and man, and that, since both God and man comprehended the meaning of the symbols of Jesus' communication, both God and man possessed the attributes of personality in so far as the requirements of the ability of intercommunication were concerned. That the personality of Jesus demonstrated the personality of God, while it proved conclusively the presence of God in man. That two things which are related to the same thing are related to each other.

161:1.9 (1784.6) 4. That personality represents man's highest concept of human reality and divine values; that God also represents man's highest concept of divine reality and infinite values; therefore, that God must be a divine and infinite personality, a personality in reality although infinitely and eternally transcending man's concept and definition of personality, but nevertheless always and universally a personality.

161:1.10 (1784.7) 5. That God must be a personality since he is the Creator of all personality and the destiny of all personality. Rodan had been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eaching of Jesus, “Be you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161:1.11 (1784.8) When Rodan heard these arguments, he said: “I am convinced. I will confess God as a person if you will permit me to qualify my confession of such a belief by attaching to the meaning of personality a group of extended values, such as superhuman, transcendent, supreme, infinite, eternal, final, and universal. I am now convinced that, while God must be infinitely more than a personality, he cannot be anything less. I am satisfied to end the argument and to

버지의 개인적 계시로서 그리고 논리와 이성 그리고 철학의 만족되지 못한 모든 요소에 대한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리고 논쟁을 끝낸다는 것에 만족한다."

제 2 장. 예수의 신성한 본성

나다니엘과 도마는 왕국 복음에 대한 로단의 견해에 충분히 인정하였지만, 더 고려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남았는데, 아주 최근에 대중에게 선언된 교리인, 예수의 신성한 본성을 다루는 가르침이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주(主)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동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 가르침이 요약, 재정리, 재구성되어진 제시이다:

1.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수의 사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를 하느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오직 납득할 수 있는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2. 예수의 일생과 우리와의 관계적-연합은 인간 우정의 이상(理想)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아마도 그 같은 인간 친구는 오직 신성한 존재만이 그럴 수 있다. 예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가장 사심-없는 분이시다. 예수는 죄인들조차도 친구로 삼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충성이다. 우리를 책망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당신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매혹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내내, 그는 진실한 친구였다. 비위맞추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다.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들도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다;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서로 나눈다. 우리는 그렇게 벽찬 상황아래에서 한낱 인간이 그렇게 티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3. 우리는 예수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그가 결코 그릇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오류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지혜는 비상하며; 그의 경건함은 더할 나위없다. 그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사신다. 그는 아버지의 법을 어긴 적이 없기에, 나쁜 것에 대한 뉘우침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한결같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일찍이 그러한 일생을 살려고 공언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일생을 산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의 경건함은 회개로부터 솟아 나오지만, 그의 경건함은 정의로움으로부터 솟아 나온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공언하며, 병을 고

accept Jesus as the personal revelation of the Father and the satisfaction of all unsatisfied factors in logic, reason, and philosophy."

2. THE DIVINE NATURE OF JESUS

161:2.1 (1785.1) Since Nathaniel and Thomas had so fully approved Rodan's view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re remained only one more point to consider, the teaching dealing with the divine nature of Jesus, a doctrine only so recently publicly announced. Nathaniel and Thomas jointly presented their views of the divine nature of the Master, and the following narrative is a condensed, rearranged, and restated presentation of their teaching:

161:2.2 (1785.2) 1. Jesus has admitted his divinity, and we believe him. Many remarkable things have happened in connection with his ministry which we can understand only by believing that he is the Son of God as well as the Son of Man.

161:2.3 (1785.3) 2. His life association with us exemplifies the ideal of human friendship; only a divine being could possibly be such a human friend. He is the most truly unselfish person we have ever known. He is the friend even of sinners; he dares to love his enemies. He is very loyal to us. While he does not hesitate to reprove us, it is plain to all that he truly loves us. The better you know him, the more you will love him. You will be charmed by his unswerving devotion. Through all these years of our failure to comprehend his mission, he has been a faithful friend. While he makes no use of flattery, he does treat us all with equal kindness; he is invariably tender and compassionate. He has shared his life and everything else with us. We are a happy community; we share all things in common. We do not believe that a mere human could live such a blameless life under such trying circumstances.

161:2.4 (1785.4) 3. We think Jesus is divine because he never does wrong; he makes no mistakes. His wisdom is extraordinary; his piety superb. He lives day by day in perfect accord with the Father's will. He never repents of misdeeds because he transgresses none of the Father's laws. He prays for us and with us, but he never asks us to pray for him. We believe that he is consistently sinless. We do not think that one who is only human ever professed to live such a life. He claims to live a perfect life, and we acknowledge that he does. Our piety springs from repentance, but his piety springs from righteousness. He even professes to forgive sins and does heal diseases. No mere man would sanely profess to forgive sin; that is a divine prerogative. And he has seemed to be thus

친다. 한낱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한다고 제 정신으로 공언할 수 없으며; 그것은 신성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때로부터 그는 자신의 정의로움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듯하였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주(主)는 시작 때부터 정의에서의 성숙을 내 보이신다.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수 안에서 이들 선(善)의 요소들을 인지한다. 그의 경건함은 결코 눈에 거슬리거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온유하면서 두려움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믿는 우리를 승인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바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찍이 알려진 자 가운데, 최고의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한다.

4. 그의 성격의 독특함과 자신의 감성 통제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그가 인간성과 신성의 병합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는 인간적 필요가 있어야 할 장면에서 어김없이 반응하며; 고통이 그에게 호소되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 그의 연민은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또는 영적 슬픔을 막론하고 똑같이 움직이신다. 그는, 신앙의 현존이나 동료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자비도 곧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인정해 주신다. 그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며 동시에 매우 자비롭고 사려 깊다. 사람들의 영적 완고함을 슬퍼하고 그들이 진리의 빛 보기를 따를 때에 크게 기쁨을 향유한다.

5. 그는 사람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 가슴의 소망을 납득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의 고난 받는 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인간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감정은 장엄하게 영화롭다. 그는 선(善)을 강렬히 사랑하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 그는 신(神)의 현존에 대한 초인간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처럼 실행한다. 그는 사물을 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서슴없이 자신의 죽음, 앞날에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스런 사례를 말하고 있다. 그는 친절하지만, 대담하고 용기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하는 데에서 결코 머뭇거린 적이 없다.

6. 우리는 그의 초인간적 지식을 나타내는 현상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다. 주(主)가 자신 앞에 즉시 현존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 또한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천상의 개인성들과 영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가지시는 것이 분명하며;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머무르는 곳보다 위로 한참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가 특유하게 납득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화에 이끌려 나오게 하려고 질문한다.

7. 주(主)는 최근에 이르러서 자신의 초(超)인간성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임명 받은 날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

perfect in his righteousness from the times of our first contact with him. We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but our Master exhibits maturity of righteousness to start with. All men, good and evil, recognize these elements of goodness in Jesus. And yet never is his piety obtrusive or ostentatious. He is both meek and fearless. He seems to approve of our belief in his divinity. He is either what he professes to be, or else he is the greatest hypocrite and fraud the world has ever known. We are persuaded that he is just what he claims to be.

161:2.5 (1785.5) 4. The uniqueness of his character and the perfection of his emotional control convince us that he is a combination of humanity and divinity. He unfailingly responds to the spectacle of human need; suffering never fails to appeal to him. His compassion is moved alike by physical suffering, mental anguish, or spiritual sorrow. He is quick to recognize and generous to acknowledge the presence of faith or any other grace in his fellow men. He is so just and fair and at the same time so merciful and considerate. He grieves over the spiritual obstinacy of the people and rejoices when they consent to see the light of truth.

161:2.6 (1786.1) 5. He seems to know the thoughts of men's minds and to understand the longings of their hearts. And he is always sympathetic with our troubled spirits. He seems to possess all our human emotions, but they are magnificently glorified. He strongly loves goodness and equally hates sin. He possesses a superhuman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Deity. He prays like a man but performs like a God. He seems to foreknow things; he even now dares to speak about his death, some mystic reference to his future glorification. While he is kind, he is also brave and courageous. He never falters in doing his duty.

161:2.7 (1786.2) 6. We are constantly impressed by the phenomenon of his superhuman knowledge. Hardly does a day pass but something transpires to disclose that the Master knows what is going on away from his immediate presence. He also seems to know about the thoughts of his associates. He undoubtedly has communion with celestial personalities; he unquestionably lives on a spiritual plane far above the rest of us. Everything seems to be open to his unique understanding. He asks us questions to draw us out, not to gain information.

161:2.8 (1786.3) 7. Recently the Master does not hesitate to assert his superhumanity. From the day of our ordination as apostles right on down to

이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그는 신성한 교사의 권한으로 말씀한다. 주(主)는 오늘날의 종교적 가르침들의 잘못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권한으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이시며 권위가 있으시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자신으로서 너무나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의견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는 용감하면서도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8. 그는 하느님에 관하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제시되어 있는 연관-동료로서 변함없이 이야기한다. 그는 자기 속에 하느님께서 계시기라도 한 듯이 부지런히 선을 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가장 대정실색할 주장을 하는데, 이것들은 그가 만일 신성하지 않았더라면 터무니없는 말이 되어야 할 진술들이다. 그는 언젠가 선언하였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 이다.” 그는 신성을 명백하게 주장해 왔다; 하느님과 동반자관계에 있다고 공언한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협동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까지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본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말하고 행한다. 그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연합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가지는 자신의 관계적-연합을 던지시 말한다. 그는 하느님에 관하여 너무나 확실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실의-문제로서 이들 관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통을 나누시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아주 조금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하느님과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행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이심을 잘 알며,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가 또한 신성이심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성임을 믿는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한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의 토론을 끝내고 나서, 다른 사도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하였으며, 그 주간의 금요일에 도착하였다. 이 토론은 이 세 신자들 모두의 삶 속에서 큰 체험이 되었으며, 다른 사도들은 이 체험들에 대한 나다니엘과 도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그곳에 있는 메간타의 학교에서 본인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는 하늘의 왕국의 후기 관련자들에서 막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

recent times, he has never denied that he came from the Father above. He speaks with the authority of a divine teacher. The Master does not hesitate to refute the religious teachings of today and to declare the new gospel with positive authority. He is assertive, positive, and authoritative. Even John the Baptist, when he heard Jesus speak, declared that he was the Son of God. He seems to be so sufficient within himself. He craves not the support of the multitude; he is indifferent to the opinions of men. He is brave and yet so free from pride.

161:2.9 (1786.4) 8. He constantly talks about God as an ever-present associate in all that he does. He goes about doing good, for God seems to be in him. He makes the most astounding assertions about himself and his mission on earth, statements which would be absurd if he were not divine. He once declared, “Before Abraham was, I am.” He has definitely claimed divinity; he professes to be in partnership with God. He well-nigh exhausts the possibilities of language in the reiteration of his claims of intimate association with the heavenly Father. He even dares to assert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He says that anyone who has seen him has seen the Father. And he says and does all these tremendous things with such childlike naturalness. He alludes to his association with the Father in the same manner that he refers to his association with us. He seems to be so sure about God and speaks of these relations in such a matter-of-fact way.

161:2.10 (1786.5) 9. In his prayer life he appears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his Father. We have heard few of his prayers, but these few would indicate that he talks with God, as it were, face to face. He seems to know the future as well as the past. He simply could not be all of this and do all of these extraordinary things unless he were something more than human. We know he is human, we are sure of that, but we are almost equally sure that he is also divine. We believe that he is divine. We are convinced that he is the Son of Man and the Son of God.

161:2.11 (1787.1) When Nathaniel and Thomas had concluded their conferences with Rodan, they hurried on toward Jerusalem to join their fellow apostles, arriving on Friday of that week. This had been a great experience in the lives of all three of these believers, and the other apostles learned much from the recounting of these experiences by Nathaniel and Thomas.

161:2.12 (1787.2) Rodan made his way back to Alexandria, where he long taught his philosophy in the school of Meganta. He became a mighty man in the later affairs of the kingdom of heaven; he

지 신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극에 달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was a faithful believer to the end of his earth days, yielding up his life in Greece with others when the persecutions were at their height.

제 3 장. 예수의 인간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

3. JESUS' HUMAN AND DIVINE MINDS

신성에서의 의식은 그가 세례 받는 계기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마음속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갔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이전의 실존(實在) 그리고 우주적 대권을 충분히 자아-의식한 후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 의식을 여러 가지로 제한시키는 힘을 소유하게 된 것 같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오직 인간 마음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신성한 마음들 모두를 사용하실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맡겨졌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때로는 인간 지성 속에 있는 지식만을 사용한 듯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의 신성한 의식에서의 초인간적 내용을 이용함으로써만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

161:3.1 (1787.3) Consciousness of divinity was a gradual growth in the mind of Jesus up to the occasion of his baptism. After he became fully self-conscious of his divine nature, prehuman existence, and universe prerogatives, he seems to have possessed the power of variously limiting his human consciousness of his divinity. It appears to us that from his baptism until the crucifixion it was entirely optional with Jesus whether to depend only on the human mind or to utilize the knowledge of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At times he appeared to avail himself of only that information which was resident in the human intellect. On other occasions he appeared to act with such fullness of knowledge and wisdom as could be afforded only by the utilization of the superhuman content of his divine consciousness.

자신의 신성 의식을, 뜻대로, 자아-제한할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의 독특한 행위들을 납득할 수 있다. 그는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선형지식을 자신의 연관-동료들에게 알리기를 보류하는 일이 빈번했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의 본성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가 납득하건대, 그가 그들의 생각을 식별할 수 있고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 안에 깃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개념을 너무 멀리 초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161:3.2 (1787.4) We can understand his unique performances only by accepting the theory that he could, at will, self-limit his divinity consciousness. We are fully cognizant that he frequently withheld from his associates his foreknowledge of events, and that he was aware of the nature of their thinking and planning. We understand that he did not wish his followers to know too fully that he was able to discern their thoughts and to penetrate their plans. He did not desire too far to transcend the concept of the human as it was held in the minds of his apostles and disciples.

우리는 예수가 자신의 신성한 의식을 자아-제한하는 실천 관행과, 그의 인간 연관-동료들로부터 그의 예견지식과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감추고 있는 그의 기법, 이 둘의 차이를 도무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가 이 두 가지의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주어진 어떤 사례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상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우리는 의식에서의 인간적 내용만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자주 관찰했다; 그가 우주의 천상의 무리들의 지도자들과 회의하는 것을 목격하면, 그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신성한 마음이 기능하고 있음을 헤아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인간 마음과 신성한 마음의 완전한 연합이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라 사람과 하느님의 병합된 개인성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 지식의 한계이다; 우리는 실제로 이 신비에 대한 충분한 진리를 실제로 알지 못한다.

161:3.3 (1787.5) We are utterly at a loss to differentiate between his practice of self-limiting his divine consciousness and his technique of concealing his preknowledge and thought discernment from his human associates. We are convinced that he used both of these techniques, but we are not always able, in a given instance, to specify which method he may have employed. We frequently observed him acting with only the human content of consciousness; then would we behold him in conference with the directors of the celestial hosts of the universe and discern the undoubted functioning of the divine mind. And then on almost numberless occasions did we witness the working of this combined personality of man and God as it was activated by the apparent perfect union of the human and the divine minds. This is the limit of our knowledge of such phenomena; we really do not actually know the full truth about this mystery.

제 162 편 천막 축제

⇨ 161

유랜시아 책

16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2 편 천막 축제

섹션

소개

- 제 1 장.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 제 2 장. 성전에서의 첫 번째 말씀
- 제 3 장. 간통으로 잡혀 온 여인
- 제 4 장. 천막 축제
- 제 5 장. 세상의 빛에 대한 설교
- 제 6 장.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 제 7 장. 영적 자유에 대한 강론
- 제 8 장.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대화
- 제 9 장. 베들레헴에서 아브너와 함께

소개

예수는 열 사도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보다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려고 계획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호수의 동쪽 기슭을 따라 스키토폴리스 길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 밤이 가까워 오자 예수는 빌립과 마태를 길보아산 동쪽 비탈에 있는 한 마을에 보내어 일행을 위한 잠자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마침 이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천막축제를 위하여 여행을 하는 특별한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알지 못하였으며, 예수와 그 일행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마태와 빌립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분개를 현시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환영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로써 그들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었다.

빌립과 마태가 일행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PAPER 162

AT THE FEAST OF TABERNACLES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Dangers of the Visit to Jerusalem
- 2. The First Temple Talk
- 3. The Woman Taken in Adultery
- 4. The Feast of Tabernacles
- 5. Sermon on the Light of the World
- 6. Discourse on the Water of Life
- 7. The Discourse on Spiritual Freedom
- 8. The Visit with Martha and Mary
- 9. At Bethlehem with Abner

INTRODUCTION

^{162:0.1 (1788.1)} WHEN Jesus started up to Jerusalem with the ten apostles, he planned to go through Samaria, that being the shorter route. Accordingly, they passed down the eastern shore of the lake and, by way of Scythopolis, entered the borders of Samaria. Near nightfall Jesus sent Philip and Matthew over to a village on the eastern slopes of Mount Gilboa to secure lodging for the company. It so happened that these villagers were greatly prejudiced against the Jews, even more so than the average Samaritans, and these feelings were heightened at this particular time as so many were on their way to the feast of tabernacles. These people knew very little about Jesus, and they refused him lodging because he and his associates were Jews. When Matthew and Philip manifested indignation and informed these Samaritans that they were declining to entertain the Holy One of Israel, the infuriated villagers chased them out of the little town with sticks and stones.

^{162:0.2 (1788.2)} After Philip and Matthew had returned to their fellows and reported how they had been

어떻게 마을 밖으로 쫓겨났는지를 보고하였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서 말했다; “주(主)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무례하고 완악한 사마리아인들을 삼켜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수심이 가득한 이 말들을 들으신 예수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짖었다. “너희가 현시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구나. 복수하는 자는 하늘의 왕국의 걸모습도 쳐다보지 못한다.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요단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파적인 선입관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 아들을 환대하는 영광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예수와 열 사도들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강을 건너서 동쪽 요단 도로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수요일 늦은 밤이었다. 로단과의 토론 때문에 뒤에 남아 있었던 도마와 나다니엘이 금요일에 도착하였다.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다음 달까지(10월) 약 4 주 반 동안 머물렀다. 예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단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잠깐 동안의 이 방문들은 천막축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예수는 10월의 상당히 많은 날들을 아브너 그리고 그의 연관-동료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보내셨다.

제 1 장.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그들이 갈릴리로부터 피신하기 훨씬 전에,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인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에서 전파된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 복음을 증거 하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간청하였었지만; 가르치기 위해 실제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자, 그들은 예수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재판하려 한다는 것을 알뿐만 아니라, 주(主)가 최근에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선포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천막축제에 참석하려는 주(主)의 갑작스런 결정에 사도들은 대경실색하였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들이 전에 간청할 때마다 주(主)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만류하는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오로지, “그렇지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천막축제 기간 동안 예수는 몇 번에 걸쳐서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 사도들이 주(主)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主)는 이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랫동안 간청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

driven out of the village, James and John stepped up to Jesus and said: “Master, we pray you to give us permission to bid fire come down from heaven to devour these insolent and impenitent Samaritans.” But when Jesus heard these words of vengeance, he turned upon the sons of Zebedee and severely rebuked them: “You know not what manner of attitude you manifest. Vengeance savors not of the outlook of the kingdom of heaven. Rather than dispute, let us journey over to the little village by the Jordan ford.” Thus because of sectarian prejudice these Samaritans denied themselves the honor of showing hospitality to the Creator Son of a universe.

162:0.3 (1788.3) Jesus and the ten stopped for the night at the village near the Jordan ford. Early the next day they crossed the river and continued on to Jerusalem by way of the east Jordan highway, arriving at Bethany late Wednesday evening. Thomas and Nathaniel arrived on Friday, having been delayed by their conferences with Rodan.

162:0.4 (1788.4) Jesus and the twelve remained in the vicinity of Jerusalem until the end of the following month (October), about four and one-half weeks. Jesus himself went into the city only a few times, and these brief visits were made during the days of the feast of tabernacles. He spent a considerable portion of October with Abner and his associates at Bethlehem.

1. THE DANGERS OF THE VISIT TO JERUSALEM

162:1.1 (1788.5) Long before they fled from Galilee, the followers of Jesus had implored him to go to Jerusalem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in order that his message might have the prestige of having been preached at the center of Jewish culture and learning; but now that he had actually come to Jerusalem to teach, they were afraid for his life. Knowing that the Sanhedrin had sought to bring Jesus to Jerusalem for trial and recalling the Master's recently reiterated declarations that he must be subject to death, the apostles had been literally stunned by his sudden decision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To all their previous entreaties that he go to Jerusalem he had replied, “The hour has not yet come.” Now, to their protests of fear he answered only, “But the hour has come.”

162:1.2 (1788.6)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went boldly into Jerusalem on several occasions and publicly taught in the temple. This he did in spite of the efforts of his apostles to dissuade him. Though they had long urged him to proclaim his message in Jerusalem, they now feared to see him enter the city at this time, knowing full well that

인들이 주(主)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주(主)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대담한 행동만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혼동시킨 사건은 없었다. 많은 제자들은, 사도 가롯 유다 까지도, 예수가 서둘러 베니게로 피신한 것은 유대인 영도자들과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주(主)가 다른 곳으로 옮기신 의의(意義)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르는 우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막축제가 한창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의 현존은, 그가 겁이 있고 비겁하다는 온갖 수군거림을 그치게 하기에 언제나 충분하였다.

천막축제 기간 동안 로마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온, 수 천 명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에도 그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베다니로 나가기조차 하였다.

그 축제 기간 동안 예수가 어떻게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조직들 속에서 비밀리에 정서가 갈라진 결과로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엄습한 두려움이었다.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으며, 이토록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후원하는 영적 운동에 호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를 체포하지 말자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회원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유대 전역에서 수고함으로써 왕국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정서가 조성되었으므로, 예수의 적들도 감히 드러내놓고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았던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한 두 달 전 같았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대담한 배짱이 그의 적들을 간담이 서늘케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대담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헤드린은 주(主)를 체포하려고 미약하나마 그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였지만, 노력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예수의 적들은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출현에 너무 놀라서 그가 로마 당국에 의해 보호를 약속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빌립(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이 예수를 따르는 자나 진배없다는 사실을 아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빌립이 예수에게 그의 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예수가 갑자기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은 로마의 관리들과 비밀리에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들의 오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bent on bringing about his death.

162:1.3 (1788.7) Jesus' bold appearance in Jerusalem more than ever confused his followers. Many of his disciples, and even Judas Iscariot, the apostle, had dared to think that Jesus had fled in haste into Phoenicia because he feared the Jewish leaders and Herod Antipas. They failed to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ter's movements. His presence in Jerusalem at the feast of tabernacles, even in opposition to the advice of his followers, sufficed forever to put an end to all whisperings about fear and cowardice.

162:1.4 (1789.1)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thousands of believers from all parts of the Roman Empire saw Jesus, heard him teach, and many even journeyed out to Bethany to confer with him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in their home districts.

162:1.5 (1789.2) There were many reasons why Jesus was able publicly to preach in the temple courts throughout the days of the feast, and chief of these was the fear that had come over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as a result of the secret division of sentiment in their own ranks. It was a fact that many of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either secretly believed in Jesus or else were decidedly averse to arresting him during the feast, when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were present in Jerusalem, many of whom either believed in him or were at least friendly to the spiritual movement which he sponsored.

162:1.6 (1789.3) The efforts of Abner and his associates throughout Judea had also done much to consolidate sentiment favorable to the kingdom, so much so that the enemies of Jesus dared not be too outspoken in their opposition.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Jesus could publicly visit Jerusalem and live to go away. One or two months before this he would certainly have been put to death.

162:1.7 (1789.4) But the audacious boldness of Jesus in publicly appearing in Jerusalem overawed his enemies; they were not prepared for such a daring challenge. Several times during this month the Sanhedrin made feeble attempts to place the Master under arrest, but nothing came of these efforts. His enemies were so taken aback by Jesus' unexpected public appearance in Jerusalem that they conjectured he must have been promised protection by the Roman authorities. Knowing that Philip (Herod Antipas's brother) was almost a follower of Jesus,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speculated that Philip had secured for Jesus promises of protection against his enemies. Jesus had departed from their jurisdiction before they awakened to the

미 예수가 그들의 관할 구역을 떠나신 후였다.

마가단을 떠날 때 예수가 천막축제에 참석하리라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직 열 두 사도들 뿐이었다. 예수가 성전 뜰에 나타나셔서 대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주(主)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가 성전(聖殿)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예수가 축제에 참여하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소문을 들은 순례자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가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성전의 여러 뜰에서 여러 번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가르침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실제로 공식으로, 즉 정식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주(主)의 가르침을 들었던 군중들의 견해가 여럿으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선한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하였다; 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라 하였다. 예수의 적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신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 놓고 예수를 비난하지 못하고 망설였으며, 반면에 예수께 동조하는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 영도자들이 무서워서 공공연히 예수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적들도 예수가 학교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사도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다. 예수가 이 땅에서의 자기 임무의 본성에 대하여 날마다 점점 더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동료들에게 설교할 때조차도 예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놀랄 정도로 단언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제 2 장. 성전에서의 첫 번째 말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친 첫 날 오후에, 새로운 복음의 해방에 대하여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의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는 예수의 말씀을 매우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호기심 많은 자가 말씀을 가로막고 질문했다; “선생님, 당신은 랍비의 가르침도 받지 못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유창하게 성서를 인용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내게 가르쳐 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realization that they had been mistaken in the belief that his sudden and bold appearance in Jerusalem had been due to a secret understanding with the Roman officials.

162:1.8 (1789.5) Only the twelve apostles had known that Jesus intended to attend the feast of tabernacles when they had departed from Magadan. The other followers of the Master were greatly astonished when he appeared in the temple courts and began publicly to teach, and the Jewish authorities were surprised beyond expression when it was reported that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162:1.9 (1790.1) Although his disciples had not expected Jesus to attend the feast, the vast majority of the pilgrims from afar who had heard of him entertained the hope that they might see him at Jerusalem. And they were not disappointed, for on several occasions he taught in Solomon's Porch and elsewhere in the temple courts. These teachings were really the official or formal announcement of the divinity of Jesus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whole world.

162:1.10 (1790.2) The multitudes who listened to the Master's teachings were divided in their opinions. Some said he was a good man; some a prophet; some that he was truly the Messiah; others said he was a mischievous meddler, that he was leading the people astray with his strange doctrines. His enemies hesitated to denounce him openly for fear of his friendly believers, while his friends feared to acknowledge him openly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knowing that the Sanhedrin was determined to put him to death. But even his enemies marveled at his teaching, knowing that he had not been instructed in the schools of the rabbis.

162:1.11 (1790.3) Every time Jesus went to Jerusalem, his apostles were filled with terror. They were the more afraid as, from day to day, they listened to his increasingly bold pronouncements regarding the nature of his mission on earth. They were unaccustomed to hearing Jesus make such positive claims and such amazing assertions even when preaching among his friends.

2. THE FIRST TEMPLE TALK

162:2.1 (1790.4) The first afternoon that Jesus taught in the temple, a considerable company sat listening to his words depicting the liberty of the new gospel and the joy of those who believe the good news, when a curious listener interrupted him to ask: “Teacher, how is it you can quote the Scriptures and teach the people so fluently when I am told that you are untaught in the learning of the rabbis?” Jesus replied: “No man has taught me the truths which I declare to you. And this teaching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느님에 관한 것이든지 또는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든지, 내 가르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빛에 들어가려고 애쓰기 전에, 너희가 이미 가진 빛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전히 정직하게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 중에 얼마나 있느냐? 모세는 율법에서 너희에게 명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

군중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중에 언쟁이 벌어졌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미쳤다 하고; 어떤 자들은 귀신들렸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갈릴리의 선지자라고 하였다. 어떤 자들은 종교 기관도 감히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또 어떤 자들은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은 후에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묻기를, "통치자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통치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왕국의 새로운 소식, 이들 선생이 어떤 대가(代價)를 치르고서라도 옹호하기로 결정한, 형식적 종교 예식의 견디기 힘든 전통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내 가르침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고통의 노예가 되었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들은 안식일에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탐하였지만, 내가 안식일에 중환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었을 때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감히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믿게 되면, 자기들의 전통적 종교 체계가 전복되고 언제까지나 무너지리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왕국의 이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확고하게 거절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삶을 바쳐 얻은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겠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 가르침의 참된 영으로 판단하라; 의롭게 판단하라."

그러자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타남은 신비로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방자는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기 위하여 힘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고 네가 주장하는데, 나도 네 주장이 참된 것이기를 바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If any man really desires to do my Father's will, he shall certainly know about my teaching, whether it be God's or whether I speak for myself. He who speaks for himself seeks his own glory, but when I declare the words of the Father, I thereby seek the glory of him who sent me. But before you try to enter into the new light, should you not rather follow the light you already have? Moses gave you the law, yet how many of you honestly seek to fulfill its demands? Moses in this law enjoins you, saying, 'You shall not kill'; notwithstanding this command some of you seek to kill the Son of Man."

162:2.2 (1790.5) When the crowd heard these words, they fell to wrangling among themselves. Some said he was mad; some that he had a devil. Others said this was indeed the prophet of Galilee whom the scribes and Pharisees had long sought to kill. Some said the religious authorities were afraid to molest him; others thought that they laid not hands upon him because they had become believers in him. After considerable debate one of the crowd stepped forward and asked Jesus, "Why do the rulers seek to kill you?" And he replied: "The rulers seek to kill me because they resent my teaching about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 gospel that sets men free from the burdensome traditions of a formal religion of ceremonies which these teachers are determined to uphold at any cost. They circumci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the Sabbath day, but they would kill me because I once on the Sabbath day set free a man held in the bondage of affliction. They follow after me on the Sabbath to spy on me but would kill me because on another occasion I chose to make a grievously stricken man completely whole on the Sabbath day. They seek to kill me because they well know that, if you honestly believe and dare to accept my teaching, their system of traditional religion will be overthrown, forever destroyed. Thus will they be deprived of authority over that to which they have devoted their lives since they steadfastly refuse to accept this new and more glorious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now do I appeal to every one of you: Judge not according to outward appearances but rather judge by the true spirit of these teachings; judge righteously."

162:2.3 (1791.1) Then said another inquirer: "Yes, Teacher, we do look for the Messiah, but when he comes, we know that his appearance will be in mystery. We know whence you are. You have been among your brethren from the beginning. The deliverer will come in power to restore the throne of David's kingdom. Do you really claim to be the Messiah?" And Jesus replied: "You claim to know me and to know whence I am. I wish your claims were true, for indeed then would you find abundant life in that knowledge. But I declare that I

란다. 왜냐하면 만일 네가 참으로 나를 안다면, 네가 그 지식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기 거부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를 선포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서기관들의 하수인들이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례 이후의 예수와 활동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저 선생님이 갈릴리에서 오셨고, 우리가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만약 해방자, 그가 오셨을 때 과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이미 행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바리새인들과 그 하수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영도자들과 상의했고, 당장에 예수가 성전 뜰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대개 로마의 당국자들이 어떤 특권을 약속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의 대담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들은 로마인 통치자들이 그러한 일을 유대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산헤드린의 담당 관리 이버가 두 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오라고 파견되었다. 이버가 예수께 다가가자 주(主)는 말씀했다;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더 가까이 와서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 나를 체포하라고 네가 파견된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배척하지 않는다; 오직 네 상관들의 명령 때문에 왔을 뿐이고, 유대 통치자들은 나를 비밀히 죽이고자 하면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너희 중에 누구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통의 어둠과 편견의 사슬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일생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내밀고 있다. 나는 죄의 사슬을 끊고 악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갖게 하려고 왔다. 너희는 나와 너희를 불안하게 걱정시키는 나의 가르침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다. 내가 너희와 잠시

have not come to you for myself; I have been sent by the Father, and he who sent me is true and faithful. By refusing to hear me, you are refusing to receive Him who sends me. You, if you will receive this gospel, shall come to know Him who sent me. I know the Father, for I have come from the Father to declare and reveal him to you.”

162:2.4 (1791.2) The agents of the scribes wanted to lay hands upon him, but they feared the multitude, for many believed in him. Jesus' work since his baptism had become well known to all Jewry, and as many of these people recounted these things, they said among themselves: “Even though this teacher is from Galilee, and even though he does not meet all of our expectations of the Messiah, we wonder if the deliverer, when he does come, will really do anything more wonderful than this Jesus of Nazareth has already done.”

162:2.5 (1791.3) When the Pharisees and their agents heard the people talking this way, they took counsel with their leaders and decided that something should be done forthwith to put a stop to these public appearances of Jesus in the temple courts. The leaders of the Jews, in general, were disposed to avoid a clash with Jesus, believing that the Roman authorities had promised him immunity. They could not otherwise account for his boldness in coming at this time to Jerusalem; but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did not wholly believe this rumor. They reasoned that the Roman rulers would not do such a thing secretly and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highest governing body of the Jewish nation.

162:2.6 (1791.4) Accordingly, Eber, the proper officer of the Sanhedrin, with two assistants was dispatched to arrest Jesus. As Eber made his way toward Jesus, the Master said: “Fear not to approach me. Draw near while you listen to my teaching. I know you have been sent to apprehend me, but you should understand that nothing will befall the Son of Man until his hour comes. You are not arrayed against me; you come only to do the bidding of your masters, and even these rulers of the Jews verily think they are doing God's service when they secretly seek my destruction.

162:2.7 (1791.1) “I bear none of you ill will. The Father loves you, and therefore do I long for your deliverance from the bondage of prejudice and the darkness of tradition. I offer you the liberty of life and the joy of salvation. I proclaim the new and living way, the deliverance from evil and the breaking of the bondage of sin. I ha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and have it eternally. You seek to be rid of me and my disquieting teachings. If you could only realize that I am to be with you only a

동안 밖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이제 곧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너희는 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가는 곳이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현존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언젠가 달성할 것이다.”

조소하던 몇 명이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니, 어디를 말하는가? 그리스인에게로 가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우리를 곧 떠나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버와 그의 보좌관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합 장소로 그냥 돌아갔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함께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두머리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버와 보좌관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자, 이버는 다만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므로 군중들 속에서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보통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셔서 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버에게 욕하며 말했다; “너도 타락해 버렸느냐? 그 거짓말쟁이를 믿으려고 하느냐? 배운 자들이나 통치자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의 교활한 가르침에 속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네가 어찌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군중들의 태도에 동조하게 될 수가 있느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이버는 대답했다; “나의 주(主)들이시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군중들에게 자비와 희망에 넘친 말을 합니다. 그는 낙심한 자들을 활기치게 하였고, 그의 말은 우리의 혼까지도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가 비록 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닐지 몰라도, 그 가르침 속에 무슨 그릇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법은 공명정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를 정죄합니까?” 그러자 산헤드린의 우두머리는 이버에게 격노하며 그에게 달려들면서 말했다; “네가 미쳤느냐? 너도 혹시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성서를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메시아는 고사하고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황하여 해산하였으며, 예수는 밤을 보내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갔다.

제 3 장. 간통으로 잡혀 온 여인

예수의 적들과 어떤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이 그의 현존 앞으로 데려온, 악하다고 소문난 그 여

little while! In just a short time I go to Him who sent me into this world. And then will many of you diligently seek me, but you shall not discover my presence, for where I am about to go you cannot come. But all who truly seek to find me shall sometime attain the life that leads to my Father's presence.”

162:2.8 (1792.2) Some of the scoffers said among themselves: “Where will this man go that we cannot find him? Will he go to live among the Greeks? Will he destroy himself? What can he mean when he declares that soon he will depart from us, and that we cannot go where he goes?”

162:2.9 (1792.3) Eber and his assistants refused to arrest Jesus; they returned to their meeting place without him. When, therefore,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upbraided Eber and his assistants because they had not brought Jesus with them, Eber only replied: “We feared to arrest him in the midst of the multitude because many believe in him. Besides, we never heard a man speak like this man. There is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about this teacher. You would all do well to go over to hear him.” And when the chief rulers heard these words, they were astonished and spoke tauntingly to Eber: “Are you also led astray? Are you about to believe in this deceiver? Have you heard that any of our learned men or any of the rulers have believed in him? Have any of the scribes or the Pharisees been deceived by his clever teachings? How does it come that you are influenced by the behavior of this ignorant multitude who know not the law or the prophets? Do you not know that such untaught people are accursed?” And then answered Eber: “Even so, my masters, but this man speaks to the multitude words of mercy and hope. He cheers the downhearted, and his words were comforting even to our souls. What can there be wrong in these teachings even though he may not be the Messiah of the Scriptures? And even then does not our law require fairness? Do we condemn a man before we hear him?” And the chief of the Sanhedrin was wroth with Eber and, turning upon him, said: “Have you gone mad? Are you by any chance also from Galilee? Search the Scriptures, and you will discover that out of Galilee arises no prophet, much less the Messiah.”

162:2.10 (1792.4) The Sanhedrin disbanded in confusion, and Jesus withdrew to Bethany for the night.

3. THE WOMAN TAKEN IN ADULTERY

162:3.1 (1792.5) It was during this visit to Jerusalem that Jesus dealt with a certain woman of evil

인을 예수가 대한 것은 이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이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기록은, 이 여인은 예수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 왔으며, 이 유대 종교 영도자들 자신이 부도덕에 있어서 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자각하도록 예수가 그들을 다루었다고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멀고 지적으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시대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도 잘 아셨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축제의 세 번째 날 아침에, 예수가 성전에 가까이 가면서, 어느 여인을 끌고 가는 산헤드린에 고용된 관리들의 집단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가까이 오면서, 그들 중에 대변자가 말했다: “주(主)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에게는 우리가 돌을 던져야만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명하겠습니까?”

만일 예수가 자아-고백한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모세의 율법을 채택하면, 로마 법정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유대인에게 금지한 로마 통치자들과 시비에 말려들게 하려는 것이 예수의 적들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와 유대인 법보다 자신을 높였다고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를 고발할 생각이었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비난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그 음모 전체가 그 자체의 더러운 무게로 인하여 산산조각나도록 그 상황을 잘 처리하였다.

한 때 미모를 소유하였던 이 여인은, 예수의 젊은 시절 내내 예수에게 항상 말쑥을-부렸던 자인, 나사렛의 한 하류 계층 사람의 아내였다. 이 여인과 결혼한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몸을 팔게 하여 돈을 벌며 생활하는 너무도 부끄러운 것을 하였다. 그는 아내의 육체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매춘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는 유대인 통치자들이 고용한 자와 흥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상업화된 악행에 팔아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에 썩먹을 어떤 진술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여자와 법을 어긴 그녀의 동행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예수는 군중을 둘러보시다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있는 그녀의 남편을 발견하였다. 예수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이미 아셨고, 그가 비열한 거래행위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수는 먼저 이 타락한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몇 마디의 말을 모래 위에 썼고, 이 말이 그를 서둘러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녀를 고발하려는 자들이 보라고 다시 땅에 쓰셨으며, 그들 역시 이것을 읽고 하나

repute who was brought into his presence by her accusers and his enemies. The distorted record you have of this episode would suggest that this woman had been brought before Jesus by the scribes and Pharisees, and that Jesus so dealt with them as to indicate that thes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might themselves have been guilty of immorality. Jesus well knew that, while these scribes and Pharisees were spiritually blind and intellectually prejudiced by their loyalty to tradition, they were to be numbered among the most thoroughly moral men of that day and generation.

162:3.2 (1793.1) What really happened was this: Early the third morning of the feast, as Jesus approached the temple, he was met by a group of the hired agents of the Sanhedrin who were dragging a woman along with them. As they came near, the spokesman said: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 in the very act. Now, the law of Moses commands that we should stone such a woman. What do you say should be done with her?”

162:3.3 (1793.2) It was the plan of Jesus’ enemies, if he upheld the law of Moses requiring that the self-confessed transgressor be stoned, to involve him in difficulty with the Roman rulers, who had denied the Jews the right to inflict the death penalty without the approval of a Roman tribunal. If he forbade stoning the woman, they would accuse him before the Sanhedrin of setting himself up above Moses and the Jewish law. If he remained silent, they would accuse him of cowardice. But the Master so managed the situation that the whole plot fell to pieces of its own sordid weight.

162:3.4 (1793.3) This woman, once comely, was the wife of an inferior citizen of Nazareth, a man who had been a troublemaker for Jesus throughout his youthful days. The man, having married this woman, did most shamefully force her to earn their living by making commerce of her body. He had come up to the feast at Jerusalem that his wife might thus prostitute her physical charms for financial gain. He had entered into a bargain with the hirelings of the Jewish rulers thus to betray his own wife in her commercialized vice. And so they came with the woman and her companion in transgression for the purpose of ensnaring Jesus into making some statement which could be used against him in case of his arrest.

162:3.5 (1793.4) Jesus, looking over the crowd, saw her husband standing behind the others. He knew what sort of man he was and perceived that he was a party to the despicable transaction. Jesus first walked around to near where this degenerate husband stood and wrote upon the sand a few words which caused him to depart in haste. Then he came back before the woman and wrote again upon the ground for the benefit of her would-be

씩 떠나갔다. 주(主)가 세 번째로 모래 위에 쓰셨을 때, 악한 일에 그녀와 함께 한 그녀의 동행자도 떠나갔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쓰시기를 마치고 일어난 때에는 오직 그 여인만이 주(主) 앞에 서 있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 여인이 눈을 들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씀했다; “나는 너에 대하여 알고;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평안히 네 길을 가라.” 그리고 이 여인, 힐다나는 사악한 남편을 버리고 왕국의 제자가 되었다.

accusers; and when they read his words, they, too, went away, one by one. And when the Master had written in the sand the third time, the woman's companion in evil took his departure, so that, when the Master raised himself up from this writing, he beheld the woman standing alone before him. Jesus said: “Woman, where are your accusers? did no man remain to stone you?” And the woman, lifting up her eyes, answered, “No man, Lord.” And then said Jesus: “I know about you;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in peace.” And this woman, Hildana, forsook her wicked husband and joined herself to the disciples of the kingdom.

제 4 장. 천막 축제

스페인으로부터 인도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하기에는 이 천막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회였다. 이 축제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앞으로 만든 오두막에 기거하였다. 이것은 추수하여 수확하는 축제였으며, 곧 가을이 되고 추위지는 시기였으므로, 겨울이 끝나는 때의 유월절이나 여름이 시작되는 때의 오순절 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들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마침내 그들의 주(主)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온 세계 앞에 대담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다.

다른 축제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희생물이 이때에만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축제들 중의 축제였다. 이때에는 성전 헌납금을 받았다; 종교적인 경배의 장엄한 의식(儀式)도 있었지만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함께 이루어졌다. 민족적인 기쁨, 희생물, 레위인의 영광, 그리고 사제들의 은백색 트럼펫에서 나오는 장엄한 경적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밤에는 여인의 뜰에서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촛대들과 성전 뜰 근처에 서 있는 많은 횃불의 현란한 빛에 의하여, 성전의 인상적인 모습과 순례자 군중들이 밝게 비쳐진다. 이러한 즐겁고 거룩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내려다보고 있는 안토니아의 로마 성곽을 제외하면 모든 도시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로마의 속박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축제 기간 동안에 이방의 70개 국가들을 상징하는 70마리의 황소가 희생물로 바쳐졌다. 물을 흐르게 하는 의식은 신성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하였다. 물로 하는 이 의식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해돋이 행진에 이어서 행해졌다.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은백색 트럼펫이 연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뜰로부터 여인의 뜰 쪽으로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로 열려진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 정확한 행진을 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그들의 영광이 반복되었으며, 상징적인

4. THE FEAST OF TABERNACLES

162-4.1 (1793.5) The presence of people from all of the known world, from Spain to India, made the feast of tabernacles an ideal occasion for Jesus for the first time publicly to proclaim his full gospel in Jerusalem. At this feast the people lived much in the open air, in leafy booths. It was the feast of the harvest ingathering, and coming, as it did, in the cool of the autumn months, it was more generally attended by the Jews of the world than was the Passover at the end of the winter or Pentecost at the beginning of summer. The apostles at last beheld their Master making the bold announcement of his mission on earth before all the world, as it were.

162-4.2 (1794.1) This was the feast of feasts, since any sacrifice not made at the other festivals could be made at this time. This was the occasion of the reception of the temple offerings; it was a combination of vacation pleasures with the solemn rites of religious worship. Here was a time of racial rejoicing, mingled with sacrifices, Levitical chants, and the solemn blasts of the silvery trumpets of the priests. At night the impressive spectacle of the temple and its pilgrim throngs was brilliantly illuminated by the great candelabras which burned brightly in the court of the women as well as by the glare of scores of torches standing about the temple courts. The entire city was gaily decorated except the Roman castle of Antonia, which looked down in grim contrast upon this festive and worshipful scene. And how the Jews did hate this ever-present reminder of the Roman yoke!

162-4.3 (1794.2) Seventy bullocks were sacrificed during the feast, the symbol of the seventy nations of heathendom. The ceremony of the outpouring of the water symbolized the outpouring of the divine spirit. This ceremony of the water followed the sunrise procession of the priests and Levites. The worshipers passed down the steps leading from the court of Israel to the court of the women while successive blasts were blown upon the silvery trumpets. And then the faithful marched on toward the beautiful gate, which opened upon the court of

물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하였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거의 450명이나 되는 사제들이 같은 숫자의 레위인들과 함께 집례를 하였다. 날이 새면 도성의 각처로부터 순례자들은 각자 오른 손에 도금양나무와 버드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 손에는 파라다이스 사과—시트론 열매 또는 “금단의 열매”—가지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의 예식을 위하여 세 무리들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아침 희생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 뜰에 남았다; 다른 하한 무리는 희생 제단을 장식하기 위하여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기 위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마자가까이로 내려갔으며; 그동안 세 번째 무리들은 성전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은백색 트럼펫 소리에 맞추어서 행진하여 상징적인 물이 들어 있는 금주전자를 손에 든 물 담당 사제 뒤를 따라 오렐을 통과하여 분수 문이 있는 실로암 근처로 나아갔다. 금주전자의 물이 실로암 연못에 다 부어진 후, 행렬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며 수문(水門) 길로 들어가서 곧바로 사제들의 뜰로 가는데, 그곳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사제는 축배 제공을 위한 포도주를 들고 있는 사제와 만난다. 이 두 사제들은 제단의 바닥으로 이어진 은으로 된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주전자에 들어 있는 것을 그곳에 부었다. 포도주와 물을 붓는 이 의식이 행해지는 것이 모인 순례자들에게 신호가 되어 레위족들과 번갈아가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전부 영창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편들을 반복할 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제단 주변에서 물결치듯 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희생물이 바쳐졌는데, 그 날의 시편(詩篇)이 반복되는 것과 함께, 축제의 마지막 날의 시편은 82편이었고, 5월부터 시작되었다.

the gentiles. Here they turned about to face westward, to repeat their chants, and to continue their march for the symbolic water.

162:4.4 (1794.3) On the last day of the feast almost four hundred and fifty priests with a corresponding number of Levites officiated. At daybreak the pilgrims assembled from all parts of the city, each carrying in the right hand a sheaf of myrtle, willow, and palm branches, while in the left hand each one carried a branch of the paradise apple — the citron, or the “forbidden fruit.” These pilgrims divided into three groups for this early morning ceremony. One band remained at the temple to attend the morning sacrifices; another group marched down below Jerusalem to near Maza to cut the willow branches for the adornment of the sacrificial altar, while the third group formed a procession to march from the temple behind the water priest, who, to the sound of the silvery trumpets, bore the golden pitcher which was to contain the symbolic water, out through Ophel to near Siloam, where was located the fountain gate. After the golden pitcher had been filled at the pool of Siloam, the procession marched back to the temple, entering by way of the water gate and going directly to the court of the priests, where the priest bearing the water pitcher was joined by the priest bearing the wine for the drink offering. These two priests then repaired to the silver funnels leading to the base of the altar and poured the contents of the pitchers therein. The execution of this rite of pouring the wine and the water was the signal for the assembled pilgrims to begin the chanting of the Psalms from 113 to 118 inclusive, in alternation with the Levites. And as they repeated these lines, they would wave their sheaves at the altar. Then followed the sacrifices for the day, associated with the repeating of the Psalm for the day, the Psalm for the last day of the feast being the eighty-second, beginning with the fifth verse.

제 5 장. 세상의 빛에 대한 설교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기 하루 전 날 저녁, 그 광경이 큰 촛대들과 횃불들로 환하게 비쳐졌을 때, 예수는 모인 군중들 한가운데에서 일어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주께로부터 나를 재판에 회부하고, 마치 나의 재판관이라도 되듯이 앉아서, 내가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체가 창조자를 심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더라도, 나의 증언은 영속적으로 참된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

5. SERMON ON THE LIGHT OF THE WORLD

162:5.1 (1794.4) On the evening of the next to the last day of the feast, when the scene was brilliantly illuminated by the lights of the candelabras and the torches, Jesus stood up in the midst of the assembled throng and said:

162:5.2 (1795.1)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Presuming to place me on trial and assuming to sit as my judges, you declare that, if I bear witness of myself, my witness cannot be true. But never can the creature sit in judgment on the Creator. Even if I do bear witness about myself, my witness is everlastingly true, for I know whence I came, who I am, and whither I go. You who would kill the Son of Man know not whence I

하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만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하며; 영의 실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는 나의 큰 적이라 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며 의로울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참된 심판의 근원이신 내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믿을만한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자, 그러면 내가 이들 진리의 증인이 되겠으며; 그렇게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리하실 것이다. 내가 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의 어두움 안에서 내게 묻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하였는데, 진실로,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떠날 것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이 빛을 거부하는 너희는 아래로부터 왔으며; 나는 위로부터 왔다. 어둠 속에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빛 속에서 산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었지만, 아직도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가지려고 한다. 나는 생명의 빛이며, 이 구원하는 빛을 고의로 또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무튼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내 아버지는 죄를 범하는 자녀들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해 왔다.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라갈 때, 그때에야 너희가 내가 그인 것과,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친 것만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준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항상 아버지의 눈에 즐거워하시는 일만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렇게 성전 뜰에서 순례자들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잡으려 하지 못하였다.

제 6 장.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마지막 날, 축제의 가장 큰 날에, 행렬이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전 뜰을 통과하고, 사제들에 의해 물과 포도주가 제단에 부어진 직후에, 예수는 순례자들 가운데서 서서 말씀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그를 내게로 오게 하여 마시게 하라. 내가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생명수를 가져오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이 나타내고 있는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came, who I am, or whither I go. You only judge by the appearances of the flesh; you do not perceive the realities of the spirit. I judge no man, not even my archenemy. But if I should choose to judge, my judgment would be true and righteous, for I would judge not alone but in association with my Father, who sent me into the world, and who is the source of all true judgment. You even allow that the witness of two reliable persons may be accepted — well, then, I bear witness of these truths; so also does my Father in heaven. And when I told you this yesterday, in your darkness you asked me, ‘Where is your Father?’ Truly, you know neither me nor my Father, for if you had known me, you would also have known the Father.

162:5.3 (1795.2) “I have already told you that I am going away, and that you will seek me and not find me, for where I am going you cannot come. You who would reject this light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 You who prefer to sit in darkness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and I live in the eternal light of the Father of lights. You all have had abundant opportunity to learn who I am, but you shall have still other evidence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on of Man. I am the light of life, and every one who deliberately and with understanding rejects this saving light shall die in his sins. Much I have to tell you, but you are unable to receive my words. However, he who sent me is true and faithful; my Father loves even his erring children. And all that my Father has spoken I also proclaim to the world.

162:5.4 (1795.3) “When the Son of Man is lifted up, then shall you all know that I am he, and that I have done nothing of myself but only as the Father has taught me. I speak these word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he who sent me is even now with me; he has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at which is pleasing in his sight.”

162:5.5 (1795.4) As Jesus thus taught the pilgrims in the temple courts, many believed. And no man dared to lay hands upon him.

6. DISCOURSE ON THE WATER OF LIFE

162:6.1 (1795.5) On the last day, the great day of the feast, as the procession from the pool of Siloam passed through the temple courts, and just after the water and the wine had been poured down upon the altar by the priests, Jesus, standing among the pilgrims, sai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From the Father above I bring to this world the water of life. He who

성서의 말 그대로, ‘그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의 일을 완결하면, 살아 있는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이 영(靈)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 목마름을 결코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봉사에배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단 앞에서 나뭇가지들로 물결치듯 흔들고 이어서 시편을 화답하여 읽는 할렐의 찬송 후에, 즉시 경배자들에게 연설하였다. 바로 이 시점은 희생물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멈추는 순간이었으며, 순례자들이 영에 굶주린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주(主)의 황홀한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른 아침의 이 봉사에배가 마칠 무렵에 예수는 군중들을 계속하여 가르쳐 말씀했다; “너희가 성서에서: ‘보라, 물이 마른땅에 부어져서 마른 흙위에 퍼지는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함의 영을 너희 자녀들 위에 부어 주어 복을 받게 하고 너희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리하리라’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의식(儀式)적인 봉사에배의 깨진 주전자로 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전통을 너희 혼에게 마시도록 하면서, 왜 영의 사명활동을 갈망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은, 너희 조상들이 신성한 영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며, 너희는 이 상징들을 오늘날까지도 잘 영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영들의 아버지께 관한 계시가 그의 아들의 증여를 통하여 이 세대에게 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증여되는 일이 그 다음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이 증여된 영이, 영속하는 생명으로, 그리고 땅 위의 하늘의 왕국과 저 먼 곳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에 있는 참된 생명수로 인도하는 그 길의 참된 선생이 된다.”

그리고 예수는 계속하여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에서 온 것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보좌를 되찾아야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감히 체포하지 못하였다.

제 7 장. 영적 자유에 대한 강론

축제의 마지막 날 오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하도록 사도들이 예수를 설득하는 일이 실패한 후에, 예수는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성전으로 갔었다. 솔로몬 행각에 매우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

believes me shall be filled with the spirit which this water represents, for even the Scriptures have said, ‘Out of him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s.’ When the Son of Man has finished his work on earth, there shall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the living Spirit of Truth. Those who receive this spirit shall never know spiritual thirst.”

162:6.2 (1795.6) Jesus did not interrupt the service to speak these words. He addressed the worshipers immediately after the chanting of the Hallel, the responsive reading of the Psalms accompanied by waving of the branches before the altar. Just here was a pause while the sacrifices were being prepared, and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pilgrims heard the fascinating voice of the Master declare that he was the giver of living water to every spirit-thirsting soul.

162:6.3 (1796.1) At the conclusion of this early morning service Jesus continued to teach the multitude, saying: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Behold, as the waters are poured out upon the dry ground and spread over the parched soil, so will I give the spirit of holiness to be poured out upon your children for a blessing even to your children’s children’? Why will you thirst for the ministry of the spirit while you seek to water your souls with the traditions of men, poured from the broken pitchers of ceremonial service? That which you see going on about this temple is the way in which your fathers sought to symbolize the bestowal of the divine spirit upon the children of faith, and you have done well to perpetuate these symbols, even down to this day. But now has come to this generation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of spirits through the bestowal of his Son, and all of this will certainly be followed by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he Father and the Son upon the children of men. To every one who has faith shall this bestowal of the spirit become the true teacher of the way which leads to life everlasting, to the true waters of life in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in the Father’s Paradise over there.”

162:6.4 (1796.2) And Jesus continued to answer the questions of both the multitude and the Pharisees. Some thought he was a prophet; some believed him to be the Messiah; others said he could not be the Christ, seeing that he came from Galilee, and that the Messiah must restore David’s throne. Still they dared not arrest him.

7. THE DISCOURSE ON SPIRITUAL FREEDOM

162:7.1 (1796.3) On the afternoon of the last day of the feast and after the apostles had failed in their efforts to persuade him to flee from Jerusalem, Jesus again went into the temple to teach. Finding

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만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내가 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노예가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외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묶인-하인이다. 묶여있는 하인은 언제까지나 주인의 집에 거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도 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너희가 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 너희로 아들들이 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알지만, 너희의 영도자들은 내 말을 그들의 가슴속에 받아들여 변환하는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의 혼은 선입견으로 봉해져 있으며 복수심에 불타는 자부심으로 눈이 멀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를 전파하였지만, 착각에 빠진 이 선생들은 오직 그들의 현세적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만을 행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는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고 말하겠다.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진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악한 자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내가 안다. 만일 하느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타낸 진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과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왜 나의 말을 남득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의 자녀가 되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냐? 만일 너희가 어둠의 자녀라면, 내가 나타낸 진리의 빛 속에서 걷지 못할 것이다. 악의 자녀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속이는 자인 그들 아버지의 길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으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진리대로 내가 살면서 선포한다면,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것이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선생들은 내가 마귀들의 영주의 힘으로 내 일을 한다고 감히 말한다.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은 내가 마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 중에 정직하게 생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내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애하지 않을지라도

a large company of believers assembled in Solomon's Porch, he spoke to them, saying:

162:7.2 (1796.4) “If my words abide in you and you are minde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then are you truly my disciples.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I know how you will answer me: W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and we are in bondage to none; how then shall we be made free? Even so, I do not speak of outward subjection to another's rule; I refer to the liberties of the soul. Verily, verily,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the bond servant of sin. And you know that the bond servant is not likely to abide forever in the master's house. You also know that the son does remain in his father's house. If, therefore, the Son shall make you free, shall make you sons, you shall be free indeed.

162:7.3 (1796.5)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seed, yet your leaders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s not been allowed to have its transforming influence in their hearts. Their souls are sealed by prejudice and blinded by the pride of revenge. I declare to you the truth which the eternal Father shows me, while these deluded teachers seek to do the things which they have learned only from their temporal fathers. And when you reply that Abraham is your father, then do I tell you that, if you were the children of Abraham, you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 Some of you believe my teaching, but others seek to destroy me because I have told you the truth which I received from God. But Abraham did not so treat the truth of God. I perceive that some among you are determined to do the works of the evil one.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know me and love the truth which I reveal. Will you not see that I come forth from the Father, that I am sent by God, that I am not doing this work of myself? Why do you not understand my words? Is it because you have chosen to become the children of evil? If you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you will hardly walk in the light of the truth which I reveal. The children of evil follow only in the ways of their father, who was a deceiver and stood not for the truth because there came to be no truth in him. But now comes the Son of Man speaking and living the truth, and many of you refuse to believe.

162:7.4 (1797.1) “Which of you convicts me of sin? If I, then, proclaim and live the truth shown me by the Father, why do you not believe? He who is of God hears gladly the words of God; for this cause many of you hear not my words, because you are not of God. Your teachers have even presumed to say that I do my works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One near by has just said that I have a devil, that I am a child of the devil. But all of you who deal honestly with your own souls know full well that I am not a devil. You know that I honor the Father even while you would dishonor me. I seek

나는 아버지를 경애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파라다이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또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내 대신 심판하실 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을 가슴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방금 내 옆에 있는 서기관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물었다: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감히 여기 서서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큰 자인가? 당신이 감히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라고 누가 허락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는 너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시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하느님, 내 아버지를 아는데 실패하였으며, 너희를 함께 데려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를 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였으며, 신앙으로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향유하였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 말을 듣고 이 무렵에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외쳤다: “네 나이가 오십도 못되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니; 너는 마귀의 자식임이 틀림없다!” 예수는 강연을 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 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한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으며, 산헤드린에서 보낸 자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즉시 성전 복도를 통하여 나가서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 근처의 비밀 회합장소로 피하였다.

제 8 장.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대화

예수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자매(姉妹)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 유숙하고, 사도들은 여기저기에 몇 명씩 흩어지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체포(逮捕)하려는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들 세 사람은 예수가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지난 수 년 동안의 관례였다. 그들은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가사를 책임지다시피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마관가지였으므로,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신선한 가르침에

not my own glory, only the glory of my Paradise Father. And I do not judge you, for there is one who judges for me.

162:7.5 (1797.2)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o believe the gospel that, if a man will keep this word of truth alive in his heart, he shall never taste death. And now just at my side a scribe says this statement proves that I have a devil, seeing that Abraham is dead, also the prophets. And he asks: ‘Are you so much greater than Abraham and the prophets that you dare to stand here and say that whoso keeps your word shall not taste death? Who do you claim to be that you dare to utter such blasphemies?’ And I say to all such that, if I glorify myself, my glory is as nothing. But it is the Father who shall glorify me, even the same Father whom you call God. But you have failed to know this your God and my Father, and I have come to bring you together; to show you how to become truly the sons of God. Though you know not the Father, I truly know him. Even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by faith he saw it and was glad.”

162:7.6 (1797.3) When the unbelieving Jews and the agents of the Sanhedrin who had gathered about by this time heard these words, they raised a tumult, shouting: “You are not fifty years of age, and yet you talk about seeing Abraham;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Jesus was unable to continue the discourse. He only said as he departed, “Verily, veri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Many of the unbelievers rushed forth for stones to cast at him, and the agents of the Sanhedrin sought to place him under arrest, but the Master quickly made his way through the temple corridors and escaped to a secret meeting place near Bethany where Martha, Mary, and Lazarus awaited him.

8. THE VISIT WITH MARTHA AND MARY

162:8.1 (1797.4) It had been arranged that Jesus should lodge with Lazarus and his sisters at a friend's house, while the apostles were scattered here and there in small groups, these precautions being taken because the Jewish authorities were again becoming bold with their plans to arrest him.

162:8.2 (1797.5) For years it had been the custom for these three to drop everything and listen to Jesus' teaching whenever he chanced to visit them. With the loss of their parents, Martha had assum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home life, and so on this occasion, while Lazarus and Mary sat at Jesus'

흠뻑 젖어있는 동안,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로 쾜히 산란해 있었고, 많은 하찮은 걱정들로 방해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기질이었다.

마르다는 의무라고 생각한 이 모든 일들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면서, 마리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심사가 불편해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께 가서 말했다; “주(主)여, 음식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저 혼자서 하도록 모른 채하는 제 동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항상 그토록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그 많은 하찮은 일들로 걱정하느냐?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오직 한 가지라도 족하며, 마리아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되어야 너희 둘이 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어서; 음식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화합하여 너희 둘의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겠느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일생에 있어서 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하늘왕국의 더욱 위대한 일들 앞에서 양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겠느냐?

제 9 장. 베들레헴에서 아브너와 함께

천막축제 바로 다음의 한 주일 동안, 많은 신자들이 베다니에 모여서 열 두 사도들로부터 안내를 받아들였다. 산헤드린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임을 방해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아브너 그리고 그의 함께 일하는 자들과 베들레헴에서 활동하였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예수는 베다니로 가셨으며, 예루살렘 방문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지 않았다.

이 때, 아브너는 베들레헴에 그의 본부를 차리고 있었고, 그 중심지로부터 유대의 도시들과 남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까지 많은 일꾼들을 보낸 후였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 안에, 예수와 아브너는 두 집단의 사도들의 일이 통합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

천막축제에 방문한 기간 동안 예수는 베다니와 베들레헴에서 거의 반반씩의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는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을 보내셨으며; 베들레헴에서는 아브너를 비롯하여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였던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였다. 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들이었던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친 그 용기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사적(私的)인 가르침 속에서 체험된 깊이 공감하는 납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들은 아브너의 연관-동료들 각자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사로잡아서 전심으로

feet drinking in his refreshing teaching, Martha made ready to serve the evening meal. It should be explained that Martha was unnecessarily distracted by numerous needless tasks, and that she was cumbered by many trivial cares; that was her disposition.

162:8.3 (1798.1) As Martha busied herself with all these supposed duties, she was perturbed because Mary did nothing to help. Therefore she went to Jesus and said: “Master,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alone to do all of the serving? Will you not bid her to come and help me?” Jesus answered: “Martha, Martha, why are you always anxious about so many things and troubled by so many trifles? Only one thing is really worth while, and since Mary has chosen this good and needful part, I shall not take it away from her. But when will both of you learn to live as I have taught you: both serving in co-operation and both refreshing your souls in unison? Can you not learn that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 that the lesser matters of life should give way before the greater things of the heavenly kingdom?”

9. AT BETHLEHEM WITH ABNER

162:9.1 (1798.2) Throughout the week that followed the feast of tabernacles, scores of believers forgathered at Bethany and received instruction from the twelve apostles. The Sanhedrin made no effort to molest these gatherings since Jesus was not present; he was throughout this time working with Abner and his associates in Bethlehem. The day following the close of the feast, Jesus had departed for Bethany, and he did not again teach in the temple during this visit to Jerusalem.

162:9.2 (1798.3) At this time, Abner was making his headquarters at Bethlehem, and from that center many workers had been sent to the cities of Judea and southern Samaria and even to Alexandria. Within a few days of his arrival, Jesus and Abner completed the arrangements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work of the two groups of apostles.

162:9.3 (1798.4) Throughout his visit to the feast of tabernacles, Jesus had divided his time about equally between Bethany and Bethlehem. At Bethany he spent considerable time with his apostles; at Bethlehem he gave much instruction to Abner and the other former apostles of John. And it was this intimate contact that finally led them to believe in him. These former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were influenced by the courage he displayed in his public teaching in Jerusalem as well as by the sympathetic understanding they experienced in his private teaching at Bethlehem. These influences finally and fully won over each of

로 왕국과 그에 함축된 진보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주(主)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 삶을 끝내기에 앞서서 연합된 운동에 자기와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 모두를 준비시키셨다.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가단 공원에서 예수 그리고 열 두 사도들과 합류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서, 11월 초에 아브너와 그를 따르는 열 한 명은 예수 그리고 열 두 사도들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의 조직으로써 그들과 함께 사명활동을 하였다.

10월 후반부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에는 가지 않았다. 10월 30일, 일요일에,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예수가 홀로 며칠 동안 쉬셨던 그 도시를 떠나서, 요단 큰 길 서쪽을 지나 곧바로 마가단 공원으로 갔으며, 11월 2일 수요일 오후 늦게 도착하였다.

사도들은 주(主)가 그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하여 크게 안심이 되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자고 더 이상 주(主)께 요청하지 않았다.

Abner's associates to a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kingdom and all that such a step implied.

^{162:9.4 (1798.5)} Before leaving Bethlehem for the last time, the Master made arrangements for them all to join him in the united effort which was to precede the ending of his earth career in the flesh. It was agreed that Abner and his associates were to join Jesus and the twelve in the near future at Magadan Park.

^{162:9.5 (1798.6)} In accordance with this understanding, early in November Abner and his eleven fellows cast their lot with Jesus and the twelve and labored with them as one organization right on down to the crucifixion.

^{162:9.6 (1798.7)} In the latter part of October Jesus and the twelve withdrew from the immediate vicinity of Jerusalem. On Sunday, October 30, Jesus and his associates left the city of Ephraim, where he had been resting in seclusion for a few days, and, going by the west Jordan highway directly to Magadan Park, arrived late on the afternoon of Wednesday, November 2.

^{162:9.7 (1799.1)} The apostles were greatly relieved to have the Master back on friendly soil; no more did they urge him to go up to Jerusalem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제 163 편 마가단에서의 70인 성직-임명

⇨ 162

유랜시아 책

16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3 편 마가단에서의 70인 성직-임명

섹션

소개

- 제 1 장. 70 인의 임명식
- 제 2 장.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
- 제 3 장. 재물에 대한 토론
- 제 4 장. 70인과의 작별
- 제 5 장.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 제 6 장. 70인이 돌아옴
- 제 7 장. 마지막 사명임무를 위한 준비

소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아브너와 약 50명의 제자들 무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도착하였다. 이 때 마가단 야영지에는 전도자 대원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약 150명이나 되는 진실하고 믿을만한 다른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 있었다. 며칠 동안 야영지를 둘러보시고 재정비한 후에, 예수는 열 두 사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신자들 무리에게 일련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주(主)는 그 후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제자들 집단으로부터 70명의 선생들을 선정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셨다. 정규적(正規的)인 이 훈련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으며,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는 이 대원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하였다. 베드로는 대중 설교 방법을 가르쳤으며; 나다니엘은 가르치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도마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마태는 그들의 전체 재정에 관계된 체제를 감독하였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특별한 체험과 선천적

PAPER 163

ORDINATION OF THE SEVENTY AT MAGADAN

SECTIONS

Introduction

- 1. Ordination of the Seventy
- 2. The Rich Young Man and Others
- 3. The Discussion about Wealth
- 4. Farewell to the Seventy
- 5. Moving the Camp to Pella
- 6. The Return of the Seventy
- 7. Preparation for the Last Mission

INTRODUCTION

163:0.1 (1800.1) A FEW days after the return of Jesus and the twelve to Magadan from Jerusalem, Abner and a group of some fifty disciples arrived from Bethlehem. At this time there were also assembled at Magadan Camp the evangelistic corps, the women's corps, and about one hundred and fifty other true and tried disciples from all parts of Palestine. After devoting a few days to visiting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amp, Jesus and the twelve began a course of intensive training for this special group of believers, and from this well-trained and experienced aggregation of disciples the Master subsequently chose the seventy teachers and sent them forth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This regular instruction began on Friday, November 4, and continued until Sabbath, November 19.

163:0.2 (1800.2) Jesus gave a talk to this company each morning. Peter taught methods of public preaching; Nathaniel instructed them in the art of teaching; Thomas explained how to answer questions; while Matthew directed the organization of their group finances. The other apostles also

인 재능에 따라서 이 훈련에 동참하였다.

participated in this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experience and natural talents.

제 1 장. 70 인의 임명식

그 70인은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에 의해 마가단 야영지에서 사도임명을 받았으며, 아브너는 이 복음 전도자들과 선생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70명의 이 대원들은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사도였던 아브너와 다른 10명, 전에 전도자들이었던 51명, 그리고 왕국 봉사에서 돋보였던 다른 8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안식일 오후 2시경, 비가 오는 사이에, 다윗과 그의 메신저 무리단의 대부분이 증강되어 400명이 넘는 신자들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그 70인의 임명식을 지켜보았다.

예수는 그 70인을 복음 전달자로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씀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에게 그의 추수 현장에 다른 일꾼들을 더욱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보내려고 한다; 이리 떼 속에 있는 양들처럼 너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둘씩 짝을 지어서 출발하고, 이 첫 번째 전도는 오직 잠시 동안만 실행될 것이니 지갑이나 여분의 옷을 지니고 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일에만 있으라. 어느 집에 머물게 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하라. 만일 그들이 그 곳에 평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너희는 그곳에 머물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떠나라. 이러한 집을 선정하여, 너희가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놓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된다 하여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악하고 자아기만에 빠진 적들과 결코 대항하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되, 동시에 비둘기 같이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하고, 마음이나 또는 육체가 병든 모든 자를 보살피 주어라. 너희가 왕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나;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너희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때까지도 너희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1. ORDINATION OF THE SEVENTY

163:1.1 (1800.3) The seventy were ordained by Jesus on Sabbath afternoon, November 19, at the Magadan Camp, and Abner was placed at the head of these gospel preachers and teachers. This corps of seventy consisted of Abner and ten of the former apostles of John, fifty-one of the earlier evangelists, and eight other disciple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 service of the kingdom.

163:1.2 (1800.4) About two o'clock on this Sabbath afternoon, between showers of rain, a company of believers, augmented by the arrival of David and the majority of his messenger corps and numbering over four hundred, assembled on the shore of the lake of Galilee to witness the ordination of the seventy.

163:1.3 (1800.5) Before Jesus laid his hands upon the heads of the seventy to set them apart as gospel messengers, addressing them, he said: “The harvest is indeed plenteous,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I exhort all of you to pray that the Lord of the harvest will send still other laborers into his harvest. I am about to set you apart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I am about to send you to Jew and gentile as lambs among wolves. As you go your ways, two and two, I instruct you to carry neither purse nor extra clothing, for you go forth on this first mission for only a short season. Salute no man by the way, attend only to your work. Whenever you go to stay at a home,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hold. If those who love peace live therein, you shall abide there; if not, then shall you depart. And having selected this home, remain there for your stay in that city,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is set before you. And you do this because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sustenance. Move not from house to house because a better lodging may be offered. Remember, as you go forth proclaiming peace on earth and good will among men, you must contend with bitter and self-deceived enemies; therefore be as wise as serpents while you are also as harmless as doves.

163:1.4 (1801.1) “And everywhere you go, preach,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nd minister to all who may be sick in either mind or body. Freely you have received of the good things of the kingdom; freely give. If the people of any city receive you, they shall find an abundant entrance into the Father’s kingdom; but if the people of any city refuse to receive this gospel, still shall you proclaim your message as you depart from that unbelieving community, saying, even as you leave,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느님의 왕국은 여전히 당신들 곁에 있다.’고 말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는 자이다.”

예수는 70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둥글게 무릎을 꿇은 그들에게 아브너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너는 70인의 메신저들을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의 모든 도시들로 보내었다. 그리하여 이 35쌍의 메신저들은 6주 동안 전파하고 가르쳤으며, 12월 30일, 금요일에 페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 근처의 새 야영지로 모두 돌아왔다.

제 2 장.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

70인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사도임명을 받으려고 하였던 50명 이상의 제자들은, 이 후보자들을 선정하도록 예수가 임명한 위원회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너, 그리고 전도자 대원들 중에서 임시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보자를 예수께로 데려갔는데, 주(主)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사도임명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고, 12명 이상은 예수와 이야기하고 나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진지한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主)여, 저도 당신의 새로운 사도들중의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매우 나이가 많아져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장사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 “내 아들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동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신실한 제자이고,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려고 집에 돌아가서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내 복음의 메신저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왕국을 선포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만일 네가 사도임명 받은 선생이 되려거든 너는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다른 사람이 묻도록 해야 한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여 떠나갔다.

다른 제자가 주(主)께 와서 말했다; “저는 사도임명 받은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집에 가서 잠시 동안만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가 만일 사도임명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복음의 메신저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누구라도 왕국의 메신저가 되기에 마땅치 않다.”

to those who reject your teaching: ‘Notwithstanding you reject the truth, it remain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you.’ He who hears you hears me. And he who hears me hears Him who sent me. He who rejects your gospel message rejects me. And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163:1.5 (1801.2)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seventy, he began with Abner and, as they knelt in a circle about him, laid his hands upon the head of every man.

163:1.6 (1801.3) Early the next morning Abner sent the seventy messengers into all the cities of Galilee, Samaria, and Judea. And these thirty-five couples went forth preaching and teaching for about six weeks, all of them returning to the new camp near Pella, in Perea, on Friday, December 30.

2. THE RICH YOUNG MAN AND OTHERS

163:2.1 (1801.4) Over fifty disciples who sought ordination and appointment to membership in the seventy were rejected by the committee appointed by Jesus to select these candidates. This committee consisted of Andrew, Abner, and the acting head of the evangelistic corps. In all cases where this committee of three were not unanimous in agreement, they brought the candidate to Jesus, and while the Master never rejected a single person who craved ordination as a gospel messenger, there were more than a dozen who, when they had talked with Jesus, no more desired to become gospel messengers.

163:2.2 (1801.5) One earnest disciple came to Jesus, saying: “Master, I would be one of your new apostles, but my father is very old and near death; could I be permitted to return home to bury him?” To this man Jesus said: “My son,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heaven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You are a faithful disciple, and you can remain such while you return home to minister to your loved ones, but not so with my gospel messengers. They have forsaken all to follow me and proclaim the kingdom. If you would be an ordained teacher, you must let others bury the dead while you go forth to publish the good news.” And this man went away in great disappointment.

163:2.3 (1801.6) Another disciple came to the Master and said: “I would become an ordained messenger, but I would like to go to my home for a short while to comfort my family.” And Jesus replied: “If you would be ordained, you must be willing to forsake all. The gospel messengers cannot have divided affections. No man, having put his hand to the plough, if he turns back, is worthy to become a messenger of the kingdom.”

그 때 안드레가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 앞으로 데려 왔는데, 그는 믿음이 깊은 신자였으며, 사도임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마타돌무스라 하는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왕국 복음을 배워 왔었다. 예수는 사도임명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타돌무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하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가 산보하고 계시는데 이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주(主)여, 저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확실히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했다; “만일 네가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면—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네가 잘하였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지 단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왕국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예, 주(主)여,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며 왕국의 자녀이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당신의 새로 임명되는 메신저들 중의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했다; “만일 네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른다면, 만일 네가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다면, 너를 메신저들 중의 하나로 삼겠다.”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주(主)여,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한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까.” 예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나의 메신저가 되고 싶으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나 네 형제들에게 수입을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좇으면, 하늘의 왕국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재물이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믿도록 배워왔다. 예수는 청년이 자기 자신과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주(主)는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싶어 하였던 것이지, 반드시 모든 재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세상 물질들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하였다. 마타돌무스가 새로 임명된 70인의 메신저들 중의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예수가 그에게 모든 현실적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거의 모든 인간 존재는 하늘의 왕국 입구에 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로 내놓도록 요구되는,

163:2.4 (1801.7) Then Andrew brought to Jesus a certain rich young man who was a devout believer, and who desired to receive ordination. This young man, Matadormus, was a member of the Jerusalem Sanhedrin; he had heard Jesus teach and had been subsequently instructed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by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Jesus talked with Matadormu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ordination and requested that he defer decision until after he had thought more fully about the matter. Early the next morning, as Jesus was going for a walk, this young man accosted him and said: “Master, I would know from you the assurances of eternal life. Seeing that I have observed all the commandments from my youth, I would like to know what more I must do to gain eternal life?” In answer to this question Jesus said: “If you keep all the commandments —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parents — you do well, but salvation is the reward of faith, not merely of works. Do you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Matadormus answered: “Yes, Master, I do believe everything you and your apostles have taught me.” And Jesus said, “Then are you indeed my disciple and a child of the kingdom.”

163:2.5 (1802.1) Then said the young man: “But, Master, I am not content to be your disciple; I would be one of your new messengers.” When Jesus heard this, he looked down upon him with a great love and said: “I will have you to be one of my messengers if you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if you will supply the one thing which you lack.” Matadormus replied: “Master, I will do anything if I may be allowed to follow you.” Jesus, kissing the kneeling young man on the forehead, said: “If you would be my messenger, go and sell all that you have and, when you have bestowed the proceeds upon the poor or upon your brethren, come and follow me, and you shall have treasure in the kingdom of heaven.”

163:2.6 (1802.2) When Matadormus heard this, his countenance fell. He arose and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This wealthy young Pharisee had been raised to believe that wealth was the token of God's favor. Jesus knew that he was not free from the love of himself and his riches. The Master wanted to deliver him from the love of wealth, not necessarily from the wealth. While the disciples of Jesus did not part with all their worldly goods, the apostles and the seventy did. Matadormus desired to be one of the seventy new messengers, and that was the reason for Jesus' requiring him to part with all of his temporal possessions.

163:2.7 (1802.3) Almost every human being has some one thing which is held on to as a pet evil, and

어떤 총애하는 악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만일 마타돌무스가 그의 재물을 내어 놓았다면, 아마도 70인의 재물의 회계로, 그의 손에 관리-행정을 바로 다시 넘겨졌을 것이다.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후, 그는 주(主)의 명령에 복종하였으며, 70인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가 되었으며, 교회는 주님의 육신 형제인 야고보가 대표하였었다.

항상 그랬으며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 영적 세계의 기세들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

마타돌무스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연관-동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미리 아셨으며; 동시에, 재물을 버린다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영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예수의 친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은 결코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의 체험이 될 수도 있었던, 주(主)와의 친밀하고도 개인적 교제를 스스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요구하였던 바로 그 일을,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실제로 하였다.

부유한 것 자체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왕국에 대한 영적 충성심은 물질적인 부(富)에게 노예가 된 상태와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이상(理想)에 대한 최극 충성심을 물질적 신앙과 함께 나눌 수 없다.

예수는 재물을 갖는 것이 그릇되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는 오직 열 두 사도들과 70인에게만 공동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들의 모든 세상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그 경우에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소유를 정리할 때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고 규정하였다. 예수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여러 번 충고하였다. 예수는 초과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합리적인 형태라고 보셨다. 사도들의 기금이 넘칠 때에는, 후에 수입이 줄어서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다가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 이 유다는 후에 안드레와 협의를 하였었다. 예수는 구호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의 재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 번 책망한 한 가지의 경제적 폐단이 있었는데, 강하고 훌륭하며 지식적인 동료들에 의해서, 약하고 배우지 못하였으며 행운이 덜 따랐던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착취당한다는 것이었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대접은 하늘의 왕국의 형제신분의 이상(理想)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가 선언하였다.

which the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requires as a part of the price of admission. If Matadormus had parted with his wealth, it probably would have been put right back into his hands for administration as treasurer of the seventy. For later 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at Jerusalem, he did obey the Master's injunction, although it was then too late to enjoy membership in the seventy, and he became the treasurer of the Jerusalem church, of which James the Lord's brother in the flesh was the head.

163:2.8 (1802.4) Thus always it was and forever will be: Men must arrive at their own decisions. There is a certain range of the freedom of choice which mortals may exercise. The forces of the spiritual world will not coerce man; they allow him to go the way of his own choosing.

163:2.9 (1802.5) Jesus foresaw that Matadormus, with his riches, could not possibly become an ordained associate of men who had forsaken all for the gospel; at the same time, he saw that, without his riches, he would become the ultimate leader of all of them. But, like Jesus' own brethren, he never became great in the kingdom because he deprived himself of that intimate and personal association with the Master which might have been his experience had he been willing to do at this time the very thing which Jesus asked, and which, several years subsequently, he actually did.

163:2.10 (1803.1) Riches have nothing directly to do with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love of wealth* does. The spiritual loyalties of the kingdom are incompatible with servility to materialistic mammon. Man may not share his supreme loyalty to a spiritual ideal with a material devotion.

163:2.11 (1803.2) Jesus never taught that it was wrong to have wealth. He required only the twelve and the seventy to dedicate all of their worldly possessions to the common cause. Even then, he provided for the profitable liquidation of their property, as in the case of the Apostle Matthew. Jesus many times advised his well-to-do disciples as he taught the rich man of Rome. The Master regarded the wise investment of excess earnings as a legitimate form of insurance against future and unavoidable adversity. When the apostolic treasury was overflowing, Judas put funds on deposit to be used subsequently when they might suffer greatly from a diminution of income. This Judas did after consultation with Andrew. Jesus never personally had anything to do with the apostolic finances except in the disbursement of alms. But there was one economic abuse which he many times condemned, and that was the unfair exploitation of the weak, unlearned, and less fortunate of men by their strong, keen, and more intelligent fellows. Jesus declared that such inhuman treatment of men, women, and children was incompatible with

the ideals of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heaven.

제 3 장. 재물에 대한 토론

3. THE DISCUSSION ABOUT WEALTH

예수가 마타돌무스와 의 대화를 끝낼 때까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의 옆에 모여 있었으며, 부유한 청년이 떠나자 예수는 사도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했다; “부자가 온전히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느냐! 영적 경배는 물질적 신앙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교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천적으로 지니기 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욱 쉽다’는 속담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은 이들 자아-충족된 부유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쉽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더욱 그러하여 말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유함을 지닌 자들은 모두 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재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진보로 인도하는 영적 일생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람에게 불가능한 많은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다다름이 있는 곳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과 함께 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깨달아야만 한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가면서 예수는 마타돌무스가 그들과 함께 남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하였는데, 이는 예수가 그를 무척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호숫가로 걸어 내려가 그 곳 물가에 앉았을 때 (이 때가 되어서 모두 거기에 있던) 열 두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세상 재물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만 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오직 사도가 되려는 사람들과 너희들처럼 한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사모하는 가슴이 순수하고 나뉘이지 않기를 요구한다. 왕국의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버려야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중심이 물질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는다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영적 일생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떠나서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가 열 두 명의 모두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재물, 가정, 아내, 형제, 부모, 또는 자녀들을 떠나 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더 많은 것을 받되, 아마도 박해와 함께

163:3.1 (1803.3) By the time Jesus had finished talking with Matadormus, Peter and a number of the apostles had gathered about him, and as the rich young man was departing, Jesus turned around to face the apostles and said: “You see how difficult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fully into the kingdom of God! Spiritual worship cannot be shared with material devotions;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have a saying that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the heathen to inherit eternal life.’ And I declare that it is as easy for this camel to go through the needle’s eye as for these self-satisfied rich one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163:3.2 (1803.4) When Peter and the apostles heard these words, they were astonished exceedingly, so much so that Peter said: “Who then, Lord, can be saved? Shall all who have riches be kept out of the kingdom?” And Jesus replied: “No, Peter, but all who put their trust in riches shall hardly enter into the spiritual life that leads to eternal progress. But even then, much which is impossible to man is not beyond the reach of the Father in heaven; rather should we recognize tha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163:3.3 (1803.5) As they went off by themselves, Jesus was grieved that Matadormus did not remain with them, for he greatly loved him. And when they had walked down by the lake, they sat there beside the water, and Peter, speaking for the twelve (who were all present by this time), said: “We are troubled by your words to the rich young man. Shall we require those who would follow you to give up all their worldly goods?” And Jesus said: “No, Peter, only those who would become apostles, and who desire to live with me as you do and as one family. But the Father requires that the affections of his children be pure and undivided. Whatever thing or person comes between you and the love of the truths of the kingdom, must be surrendered. If one’s wealth does not invade the precincts of the soul, it is of no consequence in the spiritual life of thos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163:3.4 (1804.1) And then said Peter, “But, Master,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shall we have?” And Jesus spoke to all of the twelve: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ere is no man who has left wealth, home, wife, brethren, parents, or children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who shall not receive manifold more in this world, perhaps with some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반면에 마지막인 자가 흔히 첫째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창조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복지를 위한 자비롭고도 사랑 넘치는 고려로 이루어진 자신의 공정한 법에 복종하여, 그들을 다루신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간, 많은 사람을 고용한 집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홉 시 무렵에 다시 나가,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자,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정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 그들도 즉시 일하러 갔다. 그는 열 두 시와 세 시 무렵에 또 나가서 똑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 되어서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거기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다른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왜 여기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정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

“저녁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임금(賃金)을 지불하되,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하고 처음 고용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지불하라.’ 다섯 시에 고용되었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다른 일꾼들도 똑같이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을 보고, 합의(合意)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 임금을 다 받고 나자, 그들이 불평하여 말했다;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오직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작렬하는 태양 안에서 하루 종일 짐을 졌던 우리들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대답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하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의 관대함을 아까워하느냐?’

제 4 장. 70인과의 작별

70인이 첫 번째 전도를 나가는 마가단 야영지에서의 그 날은 감동적이었다. 그 날 이른 아침, 70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

persecutions, and in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shall be last, while the last shall often be first. The Father deals with his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and in obedience to his just laws of merciful and loving consideration for the welfare of a universe.

163:3.5 (1804.2)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householder who was a large employer of men, and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laborers to work in his vineyard. When he had agreed with the laborers to pay them a denarius a day, he sent them into the vineyard. Then he went out about nine o'clock, and seeing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 place idle, he said to them: ‘Go you also to work in my vineyard, and whatsoever is right I will pay you.’ And they went at once to work. Again he went out about twelve and about three and did likewise. And going to the market place about five in the afternoon, he found still others standing idle, and he inquired of them, ‘Why do you stand here idle all the day?’ And the men answered, ‘Because nobody has hired us.’ Then said the householder: ‘Go you also to work in my vineyard, and whatever is right I will pay you.’

163:3.6 (1804.3) “When evening came, this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steward: ‘Call the labor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hired and ending with the first.’ When those who were hired about five o'clock came, they received a denarius each, and so it was with each of the other laborers. When the men who were hired at the beginning of the day saw how the later comers were paid,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than the amount agreed upon. But like the others every man received only a denarius. And when each had received his pay, they complained to the householder, saying: ‘These men who were hired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et you have paid them the same as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in the scorching sun.’

163:3.7 (1804.4) “Then answered the householder: ‘My friends, I do you no wrong. Did not each of you agree to work for a denarius a day? Take now that which is yours and go your way, for it is my desire to give to those who came last as much as I have given to you. Is it not lawful for me to do what I will with my own? or do you begrudge my generosity because I desire to be good and to show mercy?’”

4. FAREWELL TO THE SEVENTY

163:4.1 (1804.5) It was a stirring time about the Magadan Camp the day the seventy went forth on their first mission. Early that morning, in his last

을 강조하였다:

1. 왕국의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2. 아픈 자에게 사명활동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삼가라.

3. 세상에서의 권력과 물질적인 영화의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 신분을 전파하라.

4.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과도한 사교적인 방문이나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라.

5. 만일 어떤 집이 먼저 본부로 삼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머물러라.

6.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영도자들과 이제 공개적으로 갈라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라.

7.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의무가 이 하나의 계명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가르치라: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너희의 모든 마음과 혼으로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설명하는 삶의 613가지 규칙들 대신에,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현존 가운데서, 예수가 그 70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임명식 설교를 그들에게 하였는데, 그 설교는 주(主)가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왕국의 메신저들로서 떠나도록 했었을 때 주신 명령을 공들여 다듬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70인들에게 그들의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깊이 간직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1. 헌납하는 헌신. 더 많은 일꾼들을 복음의 추수를 거두는 일에 보내지도록 항상 기도할 것.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은 것이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들의 일상적인 경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충고하였다.

2. 참된 용기. 그들이 적을 만날지도 모르며 박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의 임무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하였으며, 두려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물러서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3. 신앙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에 전혀 아무 도움도 없이 임해야만 하였다;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용품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만 하였다.

4. 열의와 진취성. 그들이 열의와 지적인 열심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고; 엄격하게 주(主)의 일에 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동양식 인사는 길고

talk with the seventy, Jesus placed emphasis on the following:

163:4.2 (1804.6) 1. The gospel of the kingdom must be proclaimed to all the world, to gentile as well as to Jew.

163:4.3 (1804.7) 2. While ministering to the sick, refrain from teaching the expectation of miracles.

163:4.4 (1805.1) 3. Proclaim a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not an outward kingdom of worldly power and material glory.

163:4.5 (1805.2) 4. Avoid loss of time through overmuch social visiting and other trivialities which might detract from wholehearted devotion to preaching the gospel.

163:4.6 (1805.3) 5. If the first house to be selected for a headquarters proves to be a worthy home, abide there throughout the sojourn in that city.

163:4.7 (1805.4) 6. Make clear to all faithful believers that the time for an open break with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at Jerusalem has now come.

163:4.8 (1805.5) 7. Teach that man's whole duty is summed up in this one commandmen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mind and soul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they were to teach as man's whole duty in place of the 613 rules of living expounded by the Pharisees.)

163:4.9 (1805.6) When Jesus had talked thus to the seventy in the presence of all the apostles and disciples, Simon Peter took them off by themselves and preached to them their ordination sermon, which was an elaboration of the Master's charge given at the time he laid his hands upon them and set them apart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Peter exhorted the seventy to cherish in their experience the following virtues:

163:4.10 (1805.7) 1. *Consecrated devotion.* To pray always for more laborers to be sent forth into the gospel harvest. He explained that, when one so prays, he will the more likely say, “Here am I; send me.” He admonished them to neglect not their daily worship.

163:4.11 (1805.8) 2. *True courage.* He warned them that they would encounter hostility and be certain to meet with persecution. Peter told them their mission was no undertaking for cowards and advised those who were afraid to step out before they started. But none withdrew.

163:4.12 (1805.9) 3. *Faith and trust.* They must go forth on this short mission wholly unprovided for; they must trust the Father for food and shelter and all other things needful.

163:4.13 (1805.10) 4. *Zeal and initiative.* They must be possessed with zeal and intelligent enthusiasm; they must attend strictly to their Master's

도 정성을 들이는 예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급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였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5. 친절함과 공손함. 주(主)는 그들에게 사교적인 격식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라고 명하였다.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였다. 더 안락한 곳에서 대접받기 위하여 또는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대접받기 위하여 겸손히 대하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경고를 받았다.

6. 병자를 돌볼 것. 육신과 마음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차도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동원하라고 베드로가 70인에게 명하였다.

모든 설명과 지시가 다 끝난 후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전도를 위해 출발하였다.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의 나라들을 7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70인의 메신저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무리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70이 된 것은 오직 우연이었을 뿐이었다. 예수는 6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려 하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로서 재물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였다.

business. Oriental salutation was a lengthy and elaborate ceremony; therefore had they been instructed to “salute no man by the way,” which was a common method of exhorting one to go about his business without the waste of time.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of friendly greeting.

163:4.14 (1805.11) 5. *Kindness and courtesy.* The Master had instructed them to avoid unnecessary waste of time in social ceremonies, but he enjoined courtesy toward all with whom they should come in contact. They were to show every kindness to those who might entertain them in their homes. They were strictly warned against leaving a modest home to be entertained in a more comfortable or influential one.

163:4.15 (1805.12) 6. *Ministry to the sick.* The seventy were charged by Peter to search out the sick in mind and body and to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bring about the alleviation or cure of their maladies.

163:4.16 (1805.13) And when they had been thus charged and instructed, they started out, two and two, on their mission in Galilee, Samaria, and Judea.

163:4.17 (1806.1) Although the Jews had a peculiar regard for the number seventy, sometimes considering the nations of heathendom as being seventy in number, and although these seventy messengers were to go with the gospel to all peoples, still as far as we can discern, it was only coincidental that this group happened to number just seventy. Certain it was that Jesus would have accepted no less than half a dozen others, but they were unwilling to pay the price of forsaking wealth and families.

제 5 장.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이 때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페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본부를 설치할 준비를 하였으며, 그 곳은 펠라에서 가까웠는데 전에 주(主)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10일 동안은 마가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로 시간을 보냈으며, 12월 6일 화요일에는 300명 정도 되는 모든 일행들이 펠라에서 가까운 강 옆에서 그 밤을 지내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였다. 우물 옆에 있는 이 장소는 몇 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야영지를 설치하였던 곳이었다.

마가단의 야영지를 철거한 후, 다윗 세베대는 벳세다로 돌아가서 즉시로 메신저 봉사를 축소시키기 시작하였다. 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들은 물론 심지어 로마제국의 먼 지방으로부터 순례자들이 매일같이 도착하였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며 티그리스 동쪽 땅에서도 왔다.

5. MOVING THE CAMP TO PELLA

163:5.1 (1806.2) Jesus and the twelve now prepared to establish their last headquarters in Perea, near Pella, where the Master was baptized in the Jordan. The last ten days of November were spent in council at Magadan, and on Tuesday, December 6, the entire company of almost three hundred started out at daybreak with all their effects to lodge that night near Pella by the river. This was the same site, by the spring, that John the Baptist had occupied with his camp several years before.

163:5.2 (1806.3) After the breaking up of the Magadan Camp, David Zebedee returned to Bethsaida and began immediately to curtail the messenger service. The kingdom was taking on a new phase. Daily, pilgrims arrived from all parts of Palestine and even from remote regions of the Roman Empire. Believers occasionally came from Mesopotamia and from the lands east of the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메신저 무리단의 도움으로 야영지 도구들을 운송용 짐승들에게 실려 운송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져가, 전에 호숫가 벳세다의 야영지를 수행하였던 것들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 당분간 벳세다를 떠나면서, 그는 호숫가로 내려가 요단을 따라가서 사도들 야영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1.5마일 북쪽 지점에 도착하였다; 약 1,500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을 접대할 준비를 하면서 한 주일 가량을 보내었다. 사도들의 야영지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때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고, 계속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숙박 설비들이 필요하였으며, 이들은 예수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페레아에 온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태와 상의한 적이 있었지만, 모든 이것을 스스로의 술선수법에서 하였다. 그는 전에 메신저 무리단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이 야영지를 수행하는 일에서 그의 조력자로 고용하였다; 정기적인 메신저 임무에는 20명 미만의 사람들만 배치하였다. 12월 마지막 무렵, 그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자들이 주(主)의 곁에 몰려들었으며, 다윗이 지은 야영지에서 기거하였다.

제 6 장. 70인이 돌아옴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언덕에 가 계신 동안, 70인의 메신저들이 둘씩 짝지어서 펠라에 있는 본부에 도착하였으며, 믿는 자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왔다. 예수가 돌아오신 것은 다섯 시 가량 되었을 때인데, 70인은 모두 가르치는 장소에 모여 있었다. 저녁 식사가 한 시간 이상 지체되는 동안, 왕국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이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의 메신저들이 지난 몇 주일 동안에도 이 소식들의 대부분을 전해 주기는 하였지만, 새로 사도임명 받은 이 선생들로부터 그들의 메시지가 굶주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생하게 듣는 것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일이었다. 예수는 마침내 자신의 개인적 현존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다. 주(主)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왕국의 확장에 중대한 위기가 없게 되었음을 아셨다.

70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귀신들까지도 복종”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경 장애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자기들이 일으킨 놀라운 치료를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이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놓여난 경우가 몇 번 있었으며, 예수는 이것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 불순종의 미숙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Tigris. Accordingly, on Sunday, December 18, David, with the help of his messenger corps, loaded on to the pack animals the camp equipage, then stored in his father's house, with which he had formerly conducted the camp of Bethsaida by the lake. Bidding farewell to Bethsaida for the time being, he proceeded down the lake shore and along the Jordan to a point about one-half mile north of the apostolic camp; and in less than a week he was prepared to offer hospitality to almost fifteen hundred pilgrim visitors. The apostolic camp could accommodate about five hundred. This was the rainy season in Palestine, and these accommodations were required to take care of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inquirers, mostly earnest, who came into Perea to see Jesus and to hear his teaching.

163:5.3 (1806.4) David did all this on his own initiative, though he had taken counsel with Philip and Matthew at Magadan. He employed the larger part of his former messenger corps as his helpers in conducting this camp; he now used less than twenty men on regular messenger duty. Near the end of December and before the return of the seventy, almost eight hundred visitors were gathered about the Master, and they found lodging in David's camp.

6. THE RETURN OF THE SEVENTY

163:6.1 (1806.5) On Friday, December 30, while Jesus was away in the near-by hills with Peter, James, and John, the seventy messengers were arriving by couples, accompanied by numerous believers, at the Pella headquarters. All seventy were assembled at the teaching site about five o'clock when Jesus returned to the camp. The evening meal was delayed for more than an hour while these enthusiasts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related their experiences. David's messengers had brought much of this news to the apostles during previous weeks, but it was truly inspiring to hear these newly ordained teachers of the gospel personally tell how their message had been received by hungry Jews and gentiles. At last Jesus was able to see men going out to spread the good news without his personal presence. The Master now knew that he could leave this world without seriously hindering the progress of the kingdom.

163:6.2 (1807.1) When the seventy related how “even the devils were subject” to them, they referred to the wonderful cures they had wrought in the cases of victims of nervous disorders. Nevertheless, there had been a few cases of real spirit possession relieved by these ministers, and referring to these, Jesus said: “It is not strange that these disobedient minor spirits should be subject to you, seeing that I beheld Satan falling as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쁨으로 향유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수의 이 잃어진 영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영들을 사람들의 바로 그 마음속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힘을 가지게 된 것을 내가 너희에 대하여 기쁨으로 향유하지만, 이 체험 때문에 들뜨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과,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끝없는 생애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예수는 이 때 저녁 식사를 나누기 바로 전, 추종자들이 드물게 목격한 바 있었던, 감정적 환희의 그런 진기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를 체험하였다. 예수가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과 자아-정의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면서, 영이 이들 영적 영광을 왕국의 자녀에게 계시하여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께 돌아간 후에도 좋은 소식들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될 것을 알기에 그리고 당신이 내게 이행하라고 하신 그 일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쁩니다. 당신이 모든 권세를 내 손에 맡겨주시려 하고, 오직 당신만이 제가 누구인지 참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오직 나만 정말로 당신을 알고 있고, 또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계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힘차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에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이 계시를 완결한 후에도, 높은 곳에서 당신의 창조체들에게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한 후에, 사도들과 사명활동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이런 일들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지나간 여러 시대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빛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직접 듣고 본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들었으며, 내가 보낸 성직자들과 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환영 받았는지를 들었다. 왕국의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 공동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코라진과 벳세다-줄리아스 그리고 가버나움의 주민들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 도시들은 이 메신저들을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곳에서 행한 기적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곳의 사람들은 오래 전에 깊이 뉘우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티레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lightning from heaven. But rejoice not so much over this, for I declare to you that, as soon as I return to my Father, we will send forth our spirits into the very minds of men so that no more can these few lost spirits enter the minds of unfortunate mortals. I rejoice with you that you have power with men, but be not lifted up because of this experience but the rather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on the rolls of heaven, and that you are thus to go forward in an endless career of spiritual conquest.”

163:6.3 (1807.2) And it was at this time, just before partaking of the evening meal, that Jesus experienced one of those rare moments of emotional ecstasy which his followers had occasionally witnessed. He said: “I thank you, my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while this wonderful gospel was hidden from the wise and self-righteous, the spirit has revealed these spiritual glories to these children of the kingdom. Yes, my Father, it must have been pleasing in your sight to do this, and I rejoice to know that the good news will spread to all the world even after I shall have returned to you and the work which you have given me to perform. I am mightily moved as I realize you are about to deliver all authority into my hands, that only you really know who I am, and that only I really know you, and those to whom I have revealed you. And when I have finished this revelation to my brethren in the flesh, I will continue the revelation to your creatures on high.”

163:6.4 (1807.3) When Jesus had thus spoken to the Father, he turned aside to speak to his apostles and ministers: “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and the ears which hear these things. Let me say to you that many prophets and many of the great men of the past ages have desired to behold what you now see, but it was not granted them. And many generations of the children of light yet to come will, when they hear of these things, envy you who have heard and seen them.”

163:6.5 (1807.4) Then, speaking to all the disciples, he said: “You have heard how many cities and villages have receiv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ow my ministers and teachers have been received by both the Jew and the gentile. And blessed indeed are these communities which have elected to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woe upon the light-rejecting inhabitants of Chorazin, Bethsaida-Julias, and Capernaum, the cities which did not well receive these messengers. I declare that, if the mighty works done in these places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 people of these so-called heathen cities would have long since repented in sackcloth and ashes. It shall indeed be more tolerable for Tyre and Sidon in the day of judgment.”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는 70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서 말씀했다; “나는 너희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기쁨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왜 그토록 놀랍게도 의기양양하였느냐? 너희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힘이 현시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효력성에 놀라서 돌아올 만큼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느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영적 기쁨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영적 자부심의 흉계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루시퍼, 사악하게 불의한 자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영적 자부심이라도 진지하게 피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의 임무에 충실하고 선행을 하는데 싫증내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를 따라 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항상 곁에서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초청할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 줄 것이다.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영적 안식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主)의 약속들을 시험해 보았을 때, 그 말씀들이 참말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그 날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고 그 약속이 확실함을 증명했다.

제 7 장. 마지막 사명임무를 위한 준비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펠라 야영지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었다; 페레아인 전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세 달 동안 페레아 전 지역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에 들어갔으며, 예수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의 본부는 이 곳 펠라 야영지에 유지되었다.

예수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께로 왔으며 매 주마다 숫자가 늘어났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과 근동(近東)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주(主)는 페레아 전도여행에 70인과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펠라 야영지에서 보내셨으며, 군중들을 가르치고 열 두 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이 세 달의 전 기간 동안 적어도 열 명의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163:6.6 (1807.5) The next day being the Sabbath, Jesus went apart with the seventy and said to them: “I did indeed rejoice with you when you came back bearing the good tidings of the recep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by so many people scattered throughout Galilee, Samaria, and Judea. But why were you so surprisingly elated? Did you not expect that your message would manifest power in its delivery? Did you go forth with so little faith in this gospel that you come back in surprise at its effectiveness? And now, while I would not quench your spirit of rejoicing, I would sternly warn you against the subtleties of pride, spiritual pride. If you could understand the downfall of Lucifer, the iniquitous one, you would solemnly shun all forms of spiritual pride.

163:6.7 (1808.1) “You have entered upon this great work of teaching mortal man that he is a son of God. I have shown you the way; go forth to do your duty and be not weary in well doing. To you and to all who shall follow in your steps down through the ages, let me say: I always stand near, and my invitation-call is, and ever shall be,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for I am true and loyal, and you shall find spiritual rest for your souls.”

163:6.8 (1808.2) And they found the Master's words to be true when they put his promises to the test. And since that day countless thousands also have tested and proved the surety of these same promises.

7. PREPARATION FOR THE LAST MISSION

163:7.1 (1808.3) The next few days were busy times in the Pella camp; preparations for the Perean mission were being completed. Jesus and his associates were about to enter upon their last mission, the three months' tour of all Perea, which terminated only upon the Master's entering Jerusalem for his final labors on earth. Throughout this period the headquarters of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as maintained here at the Pella camp.

163:7.2 (1808.4) It was no longer necessary for Jesus to go abroad to teach the people. They now came to him in increasing numbers each week and from all parts, not only from Palestine but from the whole Roman world and from the Near East. Although the Master participated with the seventy in the tour of Perea, he spent much of his time at the Pella camp, teaching the multitude and instructing the twelve. Throughout this three months' period at least ten of the apostles remained with Jesus.

여자 대원들도 페레아의 큰 도시들에서 사명 활동하기 위하여 70인과 함께 둘씩 짝지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여자 대원들은 원래 12명이었으나, 최근에 50명의 많은 여자 대원들이 가정 방문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을 돌보는 기술을 위하여 훈련을 받았었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인 퍼페투아는 새로 구성된 여자 대원들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브너 밑에서 여자들의 확대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오순절 이후에 그녀는 유명한 남편과 함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날, 그녀도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새로 구성된 이 여자 대원들 중에는 빌립과 마테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제 왕국의 일은 예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마지막 위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위상은 갈릴리에서 인기를 누렸던 지난날 동안 주(主)의 뒤를 따르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찾아다니던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물질적인 가슴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느님의 우주 아버지신분이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영적 형제신분 속에 하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163:7.3 (1808.5) The women's corps also prepared to go out, two and two, with the seventy to labor in the larger cities of Perea. This original group of twelve women had recently trained a larger corps of fifty women in the work of home visitation and in the art of ministering to the sick and the afflicted. Perpetua, Simon Peter's wife, became a member of this new division of the women's corps and was intrusted with the leadership of the enlarged women's work under Abner. After Pentecost she remained with her illustrious husband, accompanying him on all of his missionary tours; and on the day Peter was crucified in Rome, she was fed to the wild beasts in the arena. This new women's corps also had as members the wives of Philip and Matthew and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163:7.4 (1808.6) The work of the kingdom now prepared to enter upon its terminal phase under the personal leadership of Jesus. And this present phase was one of spiritual depth in contrast with the miracle-minded and wonder-seeking multitudes who followed after the Master during the former days of popularity in Galilee. However, there were still any number of his followers who were material-minded, and who failed to grasp the truth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founded on the eternal fact of the universal fatherhood of God.

제 164 편 봉헌 축제에서

⇨ 163

유랜시아 책

16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4 편 봉헌 축제에서

섹션

소개

제 1 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제 2 장. 예루살렘에서

제 3 장. 눈이 먼 거지를 고치심

제 4 장.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제 5 장. 솔로몬의 현관에서 가르치심

PAPER 164

AT THE FEAST OF DEDICATION

SECTIONS

Introduction

1. Story of the Good Samaritan

2. At Jerusalem

3. Healing the Blind Beggar

4. Josiah Before the Sanhedrin

5. Teaching in Solomon's Porch

소개

야영지가 펠라에 세워지자, 예수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봉헌 축제에 참가하였다. 요단을 지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도들은 주(主)가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 알게 되었다. 봉헌 축제에 예수가 실제로 모습을 나타내시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주 진지하게 간청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념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여러 번 간청하고, 산헤드린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는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경고를 하였지만, 예수는 오직 “나의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대답하실 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사도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느낌을 계속하여 표현하였으며, 분명히 억측으로 장담하는 듯한 그러한 지혜에 대하여 그들의 의심을 계속 표명하였다. 그들은 4시 반경에 예리고에 도착하여 밤을 보낼 숙소를 예비하였다.

INTRODUCTION

164:0.1 (1809.1) AS THE camp at Pella was being established, Jesus, taking with him Nathaniel and Thomas, secretly went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feast of the dedication. Not until they passed over the Jordan at the Bethany ford, did the two apostles become aware that their Master was going on to Jerusalem. When they perceived that he really intended to be present at the feast of dedication, they remonstrated with him most earnestly, and using every sort of argument, they sought to dissuade him. But their efforts were of no avail; Jesus was determined to visit Jerusalem. To all their entreaties and to all their warnings emphasizing the folly and danger of placing himself in the hands of the Sanhedrin, he would reply only, “I would give these teachers in Israel another opportunity to see the light, before my hour comes.”

164:0.2 (1809.2) On they went toward Jerusalem, the two apostles continuing to express their feelings of fear and to voice their doubts about the wisdom of such an apparently presumptuous undertaking. They reached Jericho about half past four and prepared to lodge there for the night.

제 1 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1. STORY OF THE GOOD SAMARITAN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 두 사도들에게 질문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제자들이 대답하였고, 어떤 것들은 주(主)가 상세히 논하였다. 이 때 어떤 율법사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논쟁을 하기 위하여 말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하기를, “율법과 예언서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 너는 그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사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했다;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했다; “네가 대답을 잘하였다. 만일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영속하는 일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사는 전적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험 삼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主)에게 좀 더 다가가서 말하기를, “그렇지만 선생님, 누가 제 이웃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민족의 자녀들”로 규정하는 유대인 법에 위반되는 대답을 예수가 하도록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이방의 개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주(主)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예수를 유도하여, 신성한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사의 의도를 아시고, 그 함정에 빠지는 대신에, 청중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예리고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예수가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데, 무자비한 산적에게 붙들려서, 모두 빼앗기고 옷도 벗겨져졌으며 매를 맞아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바로 그때 우연히 어떤 사체가 그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에게 와서 심히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고 그 길의 다른 편 쪽으로 지나 가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와서 보고는 다른 편으로 지나 가버렸다. 이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어떻게 강탈을 당하고 얻어맞았는가를 보고서, 연민이 우러나와,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가축 위에 그 사람을 태워 여기 주막으로 데려와 보살피 주었다. 다음 날 돈을 얼마큼 꺼내어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제 친구를 잘 보살피 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게 묻겠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산적에게 봉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그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서 대답하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였다.

164:1.1 (1809.3) That evening a considerable company gathered about Jesus and the two apostles to ask questions, many of which the apostles answered, while others the Master discussed. In the course of the evening a certain lawyer, seeking to entangle Jesus in a compromising disputation, said: “Teacher, I would like to ask you just what I should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answered,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the prophets; how do you read the Scriptures?” The lawyer, knowing the teachings of both Jesus and the Pharisees, answered: “To love the Lord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n said Jesus: “You have answered right; this, if you really do, will lead to life everlasting.”

164:1.2 (1809.4) But the lawyer was not wholly sincere in asking this question, and desiring to justify himself while also hoping to embarrass Jesus, he ventured to ask still another question. Drawing a little closer to the Master, he said, “But, Teacher, I should like you to tell me just who is my neighbor?” The lawyer asked this question hoping to entrap Jesus into making some statement that would contravene the Jewish law which defined one's neighbor as “the children of one's people.” The Jews looked upon all others as “gentile dogs.” This lawyer was somewhat familiar with Jesus' teachings and therefore well knew that the Master thought differently; thus he hoped to lead him into saying something which could be construed as an attack upon the sacred law.

164:1.3 (1810.1) But Jesus discerned the lawyer's motive, and instead of falling into the trap, he proceeded to tell his hearers a story, a story which would be fully appreciated by any Jericho audience. Said Jesus: “A certain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he fell into the hands of cruel brigands, who robbed him, stripped him and beat him, and departing, left him half dead. Very soon, by chance, a certain priest was going down that way, and when he came upon the wounded man, seeing his sorry plight,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in like manner a Levite also, when he came along and saw the man, passed by on the other side. Now, about this time, a certain Samaritan, as he journeyed down to Jericho, came across this wounded man; and when he saw how he had been robbed and beaten,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and going over to him, he bound up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and setting the man upon his own beast, brought him here to the inn and took care of him. And on the morrow he took out some money and, giving it to the host, said: ‘Take good care of my friend, and if the expense is more, when I come back again, I will repay you.’ Now let me ask you: Which of these three turned out to be the neighbor of him who fell among the robbers?” And when the lawyer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말을 쓰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려고 던졌던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그 대답을 율법사가 하게 되었으며, 만일 예수가 그와 같이 대답하였더라면 곧바로 이단으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예수는 그 부정직한 율법사를 난처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훈계였으며, 동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갖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멋진 꾸짖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형제간의 사랑을 촉진시켜 주었다.

제 2 장.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인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봉헌 축제에 참석 하였었다; 지금은 오직 하나의 목적, 산헤드린과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봉헌 축제에 가셨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며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금요일 밤 니고데모의 집에서 있었다. 이곳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25 명 가량의 유대인 영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무리들 중에는 14 명의, 그전에 또는 새로 임명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이버와 마타돌무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다.

이 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학식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과 두 사도들은 주(主)가 이 저명한 무리에게 한 말씀의 활력과 그 깊이에 경탄하였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서 가르친 이후로 이때만큼 세속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이토록 박식함을 나타내시거나 사람들의 관련사를 파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주(主)의 개인성을 신비로워 하면서, 그의 품위 있는 태도에 매혹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나머지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예수께 조언을 하고자 하였었다. 주(主)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主)는 그들의 계획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주(主)는 유대인 영도자들 대부분이 결코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主)가 나다니엘과 도마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고 그 밤에 나가셨을 때에는, 산헤드린의 눈에 띄도록 일할 것인가 하

perceived that he had fallen into his own snare, he answered, “He who showed mercy on him.” And Jesus said, “Go and do likewise.”

164:1.4 (1810.2) The lawyer answered, “He who showed mercy,” that he might refrain from even speaking that odious word, Samaritan. The lawyer was forced to give the very answer to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which Jesus wished given, and which, if Jesus had so stated, would have directly involved him in the charge of heresy. Jesus not only confounded the dishonest lawyer, but he told his hearers a story which was at the same time a beautiful admonition to all his followers and a stunning rebuke to all Jews regarding their attitude toward the Samaritans. And this story has continued to promote brotherly love among all who have subsequently believed the gospel of Jesus.

2. AT JERUSALEM

164:2.1 (1810.3) Jesus had attended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he might proclaim the gospel to the pilgrims from all parts of the empire; he now went up to the feast of the dedication for just one purpose: to give the Sanhedrin and the Jewish leaders another chance to see the light. The principal event of these few days in Jerusalem occurred on Friday night at the home of Nicodemus. Here were gathered together some twenty-five Jewish leaders who believed Jesus' teaching. Among this group were fourteen men who were then, or had recently been, members of the Sanhedrin. This meeting was attended by Eber, Matadormus, and Joseph of Arimathea.

164:2.2 (1810.4) On this occasion Jesus' hearers were all learned men, and both they and his two apostles were amazed at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remarks which the Master made to this distinguished group. Not since the times when he had taught in Alexandria, Rome, and in the islands of the Mediterranean, had he exhibited such learning and shown such a grasp of the affairs of men, both secular and religious.

164:2.3 (1810.5) When this little meeting broke up, all went away mystified by the Master's personality, charmed by his gracious manner, and in love with the man. They had sought to advise Jesus concerning his desire to win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Sanhedrin. The Master listened attentively, but silently, to all their proposals. He well knew none of their plans would work. He surmised that the majority of the Jewish leaders never would accept the gospel of the kingdom; nevertheless, he gave them all this one more chance to choose. But when he went forth that night, with Nathaniel and Thomas, to lodge on the Mount of Olives, he had not yet decided upon the

는 문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었다.

그날 밤에 나다니엘과 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니코데모의 집에서 들었던 것에 너무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전에 그리고 지금 산헤드린의 회원이 된 그들이 70인의 공회원들에게로 가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예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그들은 많이 생각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나의 형제들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갑절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며, 나를 향해 품고 있는 그들의 미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도하실 방법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각자 가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

제 3 장. 눈이 먼 거지를 고치심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마르다의 집으로 갔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와 두 사도들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 비록 안식일에는 걸인들이 구걸하거나 의연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기는 하였지만, 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허용되었다. 예수는 멈추어 서서 그 거지를 내려다 보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산헤드린과 다른 유대인 영도자들 그리고 종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한 번 더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예수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예수가 소경된 자의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主)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써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 그 어머니가 지은 어떤 죄 또는 다른 어떤 방종함에 의해서 그러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이 지방 전체에는 환생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플라톤과 필로 그리고 에센인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전(以前)의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들이 이전의 실존에서 썩 뿌린 것을 그 사람의 윤회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용납했다; 그리하여 이전의 일생 속에서 범한 죄 값을 현재의 일생 속에서 갚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주(主)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이전의 실존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가

method he would pursue in bringing his work once more to the notice of the Sanhedrin.

164:2.4 (1811.1) That night Nathaniel and Thomas slept little; they were too much amazed by what they had heard at Nicodemus's house. They thought much over the final remark of Jesus regarding the offer of the former and present members of the Sanhedrin to go with him before the seventy. The Master said: “No, my brethren, it would be to no purpose. You would multiply the wrath to be visited upon your own heads, but you would not in the least mitigate the hatred which they bear me. Go, each of you, about the Father's business as the spirit leads you while I once more bring the kingdom to their notice in the manner which my Father may direct.”

3. HEALING THE BLIND BEGGAR

164:3.1 (1811.2) The next morning the three went over to Martha's home at Bethany for breakfast and then went immediately into Jerusalem. This Sabbath morning, as Jesus and his two apostles drew near the temple, they encountered a well-known beggar, a man who had been born blind, sitting at his usual place. Although these mendicants did not solicit or receive alms on the Sabbath day, they were permitted thus to sit in their usual places. Jesus paused and looked upon the beggar. As he gazed upon this man who had been born blind, the idea came into his mind as to how he would once more bring his mission on earth to the notice of the Sanhedrin and the other Jewish leaders and religious teachers.

164:3.2 (1811.3) As the Master stood there before the blind man, engrossed in deep thought, Nathaniel, pondering the possible cause of this man's blindness, asked: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164:3.3 (1811.4) The rabbis taught that all such cases of blindness from birth were caused by sin. Not only were children conceived and born in sin, but a child could be born blind as a punishment for some specific sin committed by its father. They even taught that a child itself might sin before it was born into the world. They also taught that such defects could be caused by some sin or other indulgence of the mother while carrying the child.

164:3.4 (1811.5) There was, throughout all these regions, a lingering belief in reincarnation. The older Jewish teachers, together with Plato, Philo, and many of the Essenes, tolerated the theory that men may reap in one incarnation what they have sown in a previous existence; thus in one life they were believed to be expiating the sins committed in preceding lives. The Master found it difficult to make men believe that their souls had not had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추정하는 모순되는 방향으로 흘러서, 유대인들은 이 눈 먼 거지들에게 동냥을 주는 것이 아주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소경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 인정 많은 분이시여, 소경을 도와주어서 상을 얻으십시오.”라고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다.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토론을 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자기의 임무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날 하나의 수단으로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연적 또는 영적인 모든 현상들의 참된 원인을 찾도록 항상 용기를 주시고자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예수는 평범한 물질적 사건들에도 영적인 원인을 적용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자주 경고하였다.

예수는 그 날 일을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요시아라는 이름의 그 소경에게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나다니엘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 속에서 현시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사건의 자연적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낮일 동안에 그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밤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그러나 오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대답을 마치시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식일 날에 이 소경이 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소경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서 침과 흙을 개어 요시아에게 다가가 흙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바르시고 말씀했다; “아이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흙을 씻어라. 그러면 곧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아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씻었을 때, 눈이 떠져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항상 구걸이나 하면서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자였지만; 자기 눈이 난생처음 떠진 데 대한 흥분이 가라앉자, 그는 늘 동냥을 구걸하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눈 먼 거지 요시아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하고 닮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previous existences.

164:3.5 (1811.6) However, inconsistent as it seems, while such blindness was supposed to be the result of sin, the Jews held that it was meritorious in a high degree to give alms to these blind beggars. It was the custom of these blind men constantly to chant to the passers-by, “O tenderhearted, gain merit by assisting the blind.”

164:3.6 (1811.7) Jesus entered into the discussion of this case with Nathaniel and Thomas, not only because he had already decided to use this blind man as the means of that day bringing his mission once more prominently to the notice of the Jewish leaders, but also because he always encouraged his apostles to seek for the true causes of all phenomena, natural or spiritual. He had often warned them to avoid the common tendency to assign spiritual causes to commonplace physical events.

164:3.7 (1812.1) Jesus decided to use this beggar in his plans for that day's work, but before doing anything for the blind man, Josiah by name, he proceeded to answer Nathaniel's question. Said the Master: “Neither did this man sin nor his parents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manifest in him. This blindness has come upon him in the natural course of events, but we must now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still day, for the night will certainly come when it will be impossible to do the work we are about to perform. When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but in only a little while I will not be with you.”

164:3.8 (1812.2) When Jesus had spoken, he said to Nathaniel and Thomas: “Let us create the sight of this blind man on this Sabbath day that the scribes and Pharisees may have the full occasion which they seek for accusing the Son of Man.” Then, stooping over, he spat on the ground and mixed the clay with the spittle, and speaking of all this so that the blind man could hear, he went up to Josiah and put the clay over his sightless eyes, saying: “Go, my son, wash away this clay in the pool of Siloam, and immediately you shall receive your sight.” And when Josiah had so washed in the pool of Siloam, he returned to his friends and family, seeing.

164:3.9 (1812.3) Having always been a beggar, he knew nothing else; so, when the first excitement of the creation of his sight had passed, he returned to his usual place of alms-seeking. His friends, neighbors, and all who had known him aforetime, when they observed that he could see, all said, “Is this not Josiah the blind beggar?” Some said it was he, while others said, “No, it is one like him, but this man can see.” But when they asked the man himself, he answered, “I am he.”

164:3.10 (1812.4) When they began to inquire of him

물자, 그는 대답했다;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들과 나에 관하여 말을 하더니, 침과 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게 지도하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하였더니 즉각적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내가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고쳐준 이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요시아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주(主)가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 중의 하나였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지도하고 보게 되리라고 약속하는 예수가, 천막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였던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아니하였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 속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예수가 나다니엘 그리고 도마와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요시아는 어느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선생 또는 거룩한 선지자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예수가 지도한 대로 하였던 것이다.

예수가 흙과 침을 사용하고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지도한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1. 이것은 개별존재의 신앙에 따라온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일으키기로 선택한 기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로부터 파생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던 것이다.

2. 그 소경이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침의 효력을 미신적으로 믿었으며, 실로암 연못이 다소 신성한 장소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곳에까지 가서 눈에 바른 흙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은 단지 그를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활동행위에 필요한 의례일 뿐이었다.

3. 그러나 예수가 이 독특한 활동행위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수단에 부여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그 시대는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 물질적인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기적만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시력을 주었으며,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안의 성전 근처에서 한 것은, 이 행동이 산헤드린과 유대인 선생들 그리고 종교 영도자들에게 공개적인 도

how he was able to see, he answered them: “A man called Jesus came by this way, and when talking about me with his friends, he made clay with spittle, anointed my eyes, and directed that I should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I did what this man told me, and immediately I received my sight. And that is only a few hours ago. I do not yet know the meaning of much that I see.” And when the people who began to gather about him asked where they could find the strange man who had healed him, Josiah could answer only that he did not know.

164:3.11 (1812.5) This is one of the strangest of all the Master's miracles. This man did not ask for healing. He did not know that the Jesus who had directed him to wash at Siloam, and who had promised him vision, was the prophet of Galilee who had preached in Jerusalem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This man had little faith that he would receive his sight, but the people of that day had great faith in the efficacy of the spittle of a great or holy man; and from Jesus' conversation with Nathaniel and Thomas, Josiah had concluded that his would-be benefactor was a great man, a learned teacher or a holy prophet; accordingly he did as Jesus directed him.

164:3.12 (1812.6) Jesus made use of the clay and the spittle and directed him to wash in the symbolic pool of Siloam for three reasons:

164:3.13 (1812.7) 1. This was not a miracle response to the individual's faith. This was a wonder which Jesus chose to perform for a purpose of his own, but which he so arranged that this man might derive lasting benefit therefrom.

164:3.14 (1813.1) 2. As the blind man had not asked for healing, and since the faith he had was slight, these material acts were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him. He did believe in the superstition of the efficacy of spittle, and he knew the pool of Siloam was a semisacred place. But he would hardly have gone there had it not been necessary to wash away the clay of his anointing. There was just enough ceremony about the transaction to induce him to act.

164:3.15 (1813.2) 3. But Jesus had a third reason for resorting to these material means in connection with this unique transaction: This was a miracle wrought purely in obedience to his own choosing, and thereby he desired to teach his followers of that day and all subsequent ages to refrain from despising or neglecting material means in the healing of the sick. He wanted to teach them that they must cease to regard miracles as the only method of curing human diseases.

164:3.16 (1813.3) Jesus gave this man his sight by miraculous working, on this Sabbath morning and in Jerusalem near the temple, for the prime purpose of making this act an open challenge to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의 공개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그의 방법이었다. 예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었다. 예수는 산헤드린 앞에 이들 문제를 제기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 오후 일찍 두 사도들을 이 사람에게 데려와서, 이들 토론들을 일부러 도발하여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적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제 4 장.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오후 중간 무렵까지 요시아를 낮게 한 사건이 너무나도 큰 논란을 성전 주변에서 일으키게 하였기에, 산헤드린의 영도자들은 그곳의 일상적인 성전 회합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산헤드린의 집회를 금지하는 오랜 규칙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였다. 예수는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고발하는 주요 죄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준 것이 산헤드린 앞에 고발되어 재판 받기를 바라셨다, 이는 이 자비의 행동에 대하여 그를 심판하게 되면, 바로 그 높은 유대인 법정 재판소는 안식일에 이들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아-부과한 법을 직접 위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 앞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대신에, 그들은 즉시로 요시아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에, 산헤드린을 대변하는 자가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함) 요시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말하라고 하였다. 그날 아침 눈이 떠진 후로 요시아는 도마와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안식일에 고침 받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요시아는 예수가 해방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 와서,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으며, 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 하나가 긴 연설을 한 후에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로, 흙을 빚었다는 것과, 다음에는,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이 거지를 보내었다는 점에서 율법을 어겼다. 그러한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만일 평범한 죄인이라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the Sanhedrin and all the Jewish teachers and religious leaders. This was his way of proclaiming an open break with the Pharisees. He was always positive in everything he did. And it was for the purpose of bringing these matters before the Sanhedrin that Jesus brought his two apostles to this man early in the afternoon of this Sabbath day and deliberately provoked those discussions which compelled the Pharisees to take notice of the miracle.

4. JOSIAH BEFORE THE SANHEDRIN

164:4.1 (1813.4) By midafternoon the healing of Josiah had raised such a discussion around the temple that the leaders of the Sanhedrin decided to convene the council in its usual temple meeting place. And they did this in violation of a standing rule which forbade the meeting of the Sanhedrin on the Sabbath day. Jesus knew that Sabbath breaking would be one of the chief charges to be brought against him when the final test came, and he desired to be brought before the Sanhedrin for adjudication of the charge of having healed a blind man on the Sabbath day, when the very session of the high Jewish court sitting in judgment on him for this act of mercy would be deliberating on these matters on the Sabbath day and in direct violation of their own self-imposed laws.

164:4.2 (1813.5) But they did not call Jesus before them; they feared to. Instead, they sent forthwith for Josiah. After some preliminary questioning, the spokesman for the Sanhedrin (about fifty members being present) directed Josiah to tell them what had happened to him. Since his healing that morning Josiah had learned from Thomas, Nathaniel, and others that the Pharisees were angry about his healing on the Sabbath, and that they were likely to make trouble for all concerned; but Josiah did not yet perceive that Jesus was he who was called the Deliverer. So, when the Pharisees questioned him, he said: “This man came along, put clay upon my eyes, told me to go wash in Siloam, and I do now see.”

164:4.3 (1813.6) One of the older Pharisees, after making a lengthy speech, said: “This man cannot be from God because you can see that he does not observe the Sabbath. He violates the law, first, in making the clay, then, in sending this beggar to wash in Siloam on the Sabbath day. Such a man cannot be a teacher sent from God.”

164:4.4 (1813.7) Then one of the younger men who secretly believed in Jesus, said: “If this man is not sent by God, how can he do these things? We know that one who is a common sinner cannot perform such miracles. We all know this beggar

이 거지를 알고 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아는데; 이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 선지자가 마귀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십니까?” 예수를 감히 고소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케 하는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였다. 요시아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네 눈을 뜨게 하였다고 네가 주장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요시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영도자들은 크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가 실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시아의 부모를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 거지가 고쳐졌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였다.

예수가 회당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됨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는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러왔을 때, 위엄에 찬 산헤드린 앞에 세워진 이 가난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요시아의 부모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를 무서워하였다. 법정 of 대변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나? 그제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요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저의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그들은 당장 요시아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세웠다. 정식 재판 절차에 매달려서는 그들의 음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요시아를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법정 관리인이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너는 왜 진실을 식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는 너 자신과 그 사람 둘 모두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네 눈이 오늘 떠졌다고 네가 아직도 주장한다면, 하느님이 너를 치료하였다고 동의함으로써 네 죄를 대속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요시아는 어리석지도 유머가 모자라지도 않았다; 그래서 법정 관리인에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소경이었다는 것

and that he was born blind; now he sees. Will you still say that this prophet does all these wonders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And for every Pharisee who dared to accuse and denounce Jesus one would arise to ask entangling and embarrassing questions, so that a serious division arose among them. The presiding officer saw whither they were drifting, and in order to allay the discussion, he prepared further to question the man himself. Turning to Josiah, he said: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this man, this Jesus, whom you claim opened your eyes?” And Josiah answered, “I think he is a prophet.”

164:4.5 (1814.1) The leaders were greatly troubled and, knowing not what else to do, decided to send for Josiah's parents to learn whether he had actually been born blind. They were loath to believe that the beggar had been healed.

164:4.6 (1814.2) It was well known about Jerusalem, not only that Jesus was denied entrance into all synagogues, but that all who believed in his teaching were likewise cast out of the synagogue, excommunicated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and this meant denial of all rights and privileges of every sort throughout all Jewry except the right to buy the necessities of life.

164:4.7 (1814.3) When, therefore, Josiah's parents, poor and fear-burdened souls, appeared before the august Sanhedrin, they were afraid to speak freely. Said the spokesman of the court: “Is this your son? and do we understand aright that he was born blind? If this is true, how is it that he can now see?” And then Josiah's father, seconded by his mother, answered: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and that he was born blind, but how it is that he has come to see, or who it was that opened his eyes, we know not. Ask him; he is of age; let him speak for himself.”

164:4.8 (1814.4) They now called Josiah up before them a second time. They were not getting along well with their scheme of holding a formal trial, and some were beginning to feel strange about doing this on the Sabbath; accordingly, when they recalled Josiah, they attempted to ensnare him by a different mode of attack. The officer of the court spoke to the former blind man, saying: “Why do you not give God the glory for this? why do you not tell us the whole truth about what happened? We all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Why do you refuse to discern the truth? You know that both you and this man stand convicted of Sabbath breaking. Will you not atone for your sin by acknowledging God as your healer, if you still claim that your eyes have this day been opened?”

164:4.9 (1814.5) But Josiah was neither dumb nor lacking in humor; so he replied to the officer of the court: “Whether this man is a sinner, I know not; but one thing I do know — that, whereas I was

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실제로 네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너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였느냐?”

요시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답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시아가 이와 같이 말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갑자기 혼란에 빠져 거의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영도자들이 요시아에게 달려들어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의 선생들이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 하는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자 요시아는 결상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소리쳐 말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증거를 듣고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당신들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과; 오직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느님께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 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창세(創世)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너희가 다 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날 때부터 소경 되었던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네 눈이 안식일에 떠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들의 영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요시아를 쫓아내려고 회당을 향하여 즉시 달려갔다.

요시아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치료의 본질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채로 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앞에서 그가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하게 제시하였던 대담한 증거의 대부분은, 재판이 매 순간마다 부당하고 옳지 않게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제 5 장. 솔로몬의 현관에서 가르치심

안식일 위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어 하느님의 왕국에서 신성한 아들관계를 이루는 기쁨과 해방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

blind, now I see.” And since they could not entrap Josiah, they sought further to question him, asking: “Just how did he open your eyes? what did he actually do to you? what did he say to you? did he ask you to believe in him?”

164:4.10 (1814.6) Josiah replied, somewhat impatiently: “I have told you exactly how it all happened, and if you did not believe my testimony, why would you hear it again? Would you by any chance also become his disciples?” When Josiah had thus spoken, the Sanhedrin broke up in confusion, almost violence, for the leaders rushed upon Josiah, angrily exclaiming: “You may talk about being this man’s disciple, but we are disciples of Moses, and we are the teachers of the laws of God. We know that God spoke through Moses, but as for this man Jesus, we know not whence he is.”

164:4.11 (1814.7) Then Josiah, standing upon a stool, shouted abroad to all who could hear, saying: “Hearken, you who claim to be the teachers of all Israel, while I declare to you that herein is a great marvel since you confess that you know not whence this man is, and yet you know of a certainty, from the testimony which you have heard, that he opened my eyes. We all know that God does not perform such works for the ungodly; that God would do such a thing only at the request of a true worshiper — for one who is holy and righteous. You know that no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the opening of the eyes of one who was born blind. Look, then, all of you, upon me and realize what has been done this day in Jerusalem! I tell you,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not do this.” And as the Sanhedrists departed in anger and confusion, they shouted to him: “You were altogether born in sin, and do you now presume to teach us? Maybe you were not really born blind, and even if your eyes were opened on the Sabbath day, this was done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And they went at once to the synagogue to cast out Josiah.

164:4.12 (1815.1) Josiah entered this trial with meager ideas about Jesus and the nature of his healing. Most of the daring testimony which he so cleverly and courageously bore before this supreme tribunal of all Israel developed in his mind as the trial proceeded along such unfair and unjust lines.

5. TEACHING IN SOLOMON’S PORCH

164:5.1 (1815.2) All of the time this Sabbath-breaking session of the Sanhedrin was in progress in one of the temple chambers, Jesus was walking about near at hand, teaching the people in Solomon’s

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줄곧 아주 가까운 곳에서 거닐고 계셨으며, 솔로몬의 강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데러오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갑자기 그리고 공개적으로 출현할 때마다 항상 당황하였다. 열심히 찾던 그 기회를 예수가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체포하는 것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시기는 겨울 중간 무렵이었고, 사람들은 솔로몬 강당에서 일부 피난처를 구하고 있었다; 예수가 거니실 때 군중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두 시간 이상 그들을 가르치셨다. 어떤 유대인 선생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케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말씀했다;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 자신과 내 아버지께 관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배움을 느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말렸다.

예수가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많은 사랑 넘치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선한 일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에 대하여 그리하는 것인데, 네가 사람이면서 감히 네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 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에게 신성모독 죄를 씌우려 한다. 내가 만일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나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달려 나왔으나, 예수는 성전 안쪽을 통하

Porch, hoping that he would be summoned before the Sanhedrin where he could tell them the good news of the liberty and joy of divine sonship in the kingdom of God. But they were afraid to send for him. They were always disconcerted by these sudden and public appearances of Jesus in Jerusalem. The very occasion they had so ardently sought, Jesus now gave them, but they feared to bring him before the Sanhedrin even as a witness, and even more they feared to arrest him.

164:5.2 (1815.3) This was midwinter in Jerusalem, and the people sought the partial shelter of Solomon's Porch; and as Jesus lingered, the crowds asked him many questions, and he taught them for more than two hours. Some of the Jewish teachers sought to entrap him by publicly asking him: "How long will you hold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Messiah, why do you not plainly tell us?" Said Jesus: "I have told you about myself and my Father many times, but you will not believe me. Can you not see that the works I do in my Father's name bear witness for me? But many of you believe not because you belong not to my fold. The teacher of truth attracts only those who hunger for the truth and who thirst for righteousness.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to all who follow my teaching I give eternal life; they shall never perish, and no one sha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me these children, is greater than all, so that no one is able to pluck them out of my Father's hand. The Father and I are one." Some of the unbelieving Jews rushed over to where they were still building the temple to pick up stones to cast at Jesus, but the believers restrained them.

164:5.3 (1815.4) Jesus continued his teaching: "Many loving works have I shown you from the Father, so that now would I inquire for which one of these good works do you think to stone me?" And then answered one of the Pharisees: "For no good work would we stone you but for blasphemy, inasmuch as you, being a man, dare to make yourself equal with God." And Jesus answered: "You charge the Son of Man with blasphemy because you refused to believe me when I declared to you that I was sent by God. If I do not the works of God, believe me not, but if I do the works of God, even though you believe not in me, I should think you would believe the works. But that you may be certain of what I proclaim, let me again assert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and that, as the Father dwells in me, so will I dwell in every one who believes this gospel." And when the people heard these words, many of them rushed out to lay hands upon the stones to cast at him, but he passed out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and meeting Nathaniel and Thomas, who had been in attendance upon the session of

여 빠져나가셨으며;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나다니엘과 도마를 만나, 요시아가 회의장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성전 근처에서 기다리셨다.

예수와 두 사도들은 요시아가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 도마가 그를 마당으로 불러내었고, 예수가 그에게 말씀했다; “요시아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시아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말씀했다; “네가 그를 보고 들었으며, 지금 네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자 요시아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요시아는 자기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처음에는 매우 우울하였지만, 즉시 준비하여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예수가 지도하였을 때 그는 매우 용기를 얻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의지가 약한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기는 하였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영적으로 고결한 집단에 동참하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우주의 창조자를 보았던 것이다.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主)는 두 사도들과 요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시아는 주(主)의 기적의 사명 활동을 받은 자 가운데서 열매 충성하게 버린 사람의 하나임을 증명하였는데, 왜냐하면 일생동안 왕국 복음의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the Sanhedrin, he waited with them near the temple until Josiah came from the council chamber.

164:5.4 (1816.1) Jesus and the two apostles did not go in search of Josiah at his home until they heard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When they came to his house, Thomas called him out in the yard, and Jesus, speaking to him, said: “Josiah,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God?” And Josiah answered, “Tell me who he is that I may believe in him.” And Jesus said: “You have both seen and heard him, and it is he who now speaks to you.” And Josiah said, “Lord, I believe,” and falling down, he worshiped.

164:5.5 (1816.2) When Josiah learned that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he was at first greatly downcast, but he was much encouraged when Jesus directed that he should immediately prepare to go with them to the camp at Pella. This simple-minded man of Jerusalem had indeed been cast out of a Jewish synagogue, but behold the Creator of a universe leading him forth to become associated with the spiritual nobility of that day and generation.

164:5.6 (1816.3) And now Jesus left Jerusalem, not again to return until near the time when he prepared to leave this world. With the two apostles and Josiah the Master went back to Pella. And Josiah proved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Master's miraculous ministry who turned out fruitfully, for he became a lifelong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제 165 편 페레아 사명 시작

⇨ 164

유랜시아 책

16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5 편 페레아 사명 시작

섹션

소개

제 1 장. 펠라 야영지에서

제 2 장. 선한 목자에 관한 교훈

제 3 장. 펠라에서의 안식일 설교

제 4 장. 유산을 나눔

제 5 장. 재물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제 6 장.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심

PAPER 165

THE PEREAN MISSION BEGINS

SECTIONS

Introduction

1. At the Pella Camp

2. Sermon on the Good Shepherd

3. Sabbath Sermon at Pella

4. Dividing the Inheritance

5. Talks to the Apostles on Wealth

6. Answer to Peter's Question

소개

서기 30년 1월 3일 화요일, 전에 세례자 요한의 열 두 사도들의 우두머리이었고, 나지르인이며, 한 때에는 엔게디에 있는 나지르인 학교 교장이었고, 현재는 왕국의 70인 메신저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너는 페레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사명으로서 그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연관-동료들을 모두 불러 최종적인 지도를 하였다. 이번의 페레아 전도는 거의 3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주(主)의 마지막 사명활동이었다. 이 일 후에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서는 마지막 체험을 하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70인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의 도움을 잠깐씩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도시와 성읍 그리고 그 밖의 50여개의 마을들에서 일하였다: 자폰, 가다라, 마갓, 아르펠라, 라마, 에드레이, 보소라, 카스핀, 미스페, 게라사, 라가바, 수콧, 아마투스, 아담, 페누엘, 카피톨리아, 디온, 하티타, 가다, 펠라델피아, 욱베하, 길르앗, 베드-님라, 티루스, 엘레알라, 리비아스, 헤스본, 칼릴호, 베스-포, 시팀, 시브마, 메데바, 베스-메온, 아레오폴리스, 그리고 아로르 이었다.

이제 62명이 된 여자 대원들은 이 페레아 전도여행 전(全) 기간 동안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왕국 복음은 영적인 측면으로 높이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기적을

INTRODUCTION

^{165:0.1 (1817.1)} ON TUESDAY, January 3, A.D. 30, Abner, the former chief of the twelve apostles of John the Baptist, a Nazarite and onetime head of the Nazarite school at Engedi, now chief of the seventy messengers of the kingdom, called his associates together and gave them final instructions before sending them on a mission to all of the cities and villages of Perea. This Perean mission continued for almost three months and was the last ministry of the Master. From these labors Jesus went directly to Jerusalem to pass through his final experiences in the flesh. The seventy, supplemented by the periodic labors of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worked in the following cities and towns and some fifty additional villages: Zaphon, Gadara, Macad, Arbela, Ramath, Edrei, Bosora, Caspin, Mispeh, Gerasa, Ragaba, Succoth, Amathus, Adam, Penuel, Capitolias, Dion, Hatita, Gadda, Philadelphia, Jogbehah, Gilead, Beth-Nimrah, Tyrus, Elealah, Livias, Heshbon, Callirrhoe, Beth-Peor, Shittim, Sibmah, Medeba, Beth-Meon, Areopolis, and Aroer.

^{165:0.2 (1817.2)} Throughout this tour of Perea the women's corps, now numbering sixty-two, took over most of the work of ministration to the sick. This was the final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the

행하는 일은 없었다.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팔레스타인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속속들이 일한 적이 없었으며, 주(主)의 가르침이 보다 나은 계층의 시민들에게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 페레아에는 거의 같은 숫자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주로 유다 마카비 시대(時代)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었다. 페레아는 팔레스타인 전역(全域)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지역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요단 저편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시간을 나누어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에도 계시고, 여러 도시에 흩어져 가르치고 전파하는 70인을 열 두 사도들과 함께 돕기도 하였다. 비록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70인은 아브너의 지시에 따라 서민들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제 1 장. 펠라 야영지에서

1월 중순경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펠라에 모였으며, 예수는 야영지에 머무시는 동안 매일 적어도 한 번씩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개 아침 9시부터 말씀하였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매일 오후에 가르쳤다. 예수는 열 두 사도들과 다른 노련한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평범한 학습(學習)으로 매일 저녁 시간을 보내셨다. 이 저녁 모임은 보통 50명 정도 되었다.

3월 중순경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까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예수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 주(主)는 자기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정점(頂點)은 왕국에 대한 진보에서의 두 번째이자 아무 기적이 없는 위상 위에서 이루어졌다. 모인 무리들 중의 4분의 3 정도는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펠라 야영지에 모인 군중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열 두 사도들은 실제 전도 사명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함께 아브너의 연관-동료들을 방문하러 이따금씩 나갔을 뿐이다. 아브너는 전에 자기의 주(主)였던 세례자 요한이 대부분의 사명활동을 이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페레아 지역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 페레아 전도가 시작된 후로, 아브너와 70인은 펠라 야영지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higher spiritual aspect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re was, accordingly, an absence of miracle working. No other part of Palestine was so thoroughly worked by the apostles and disciples of Jesus, and in no other region did the better classes of citizens so generally accept the Master's teaching.

165:0.3 (1817.3) Perea at this time was about equally gentile and Jewish, the Jews having been generally removed from these regions during the times of Judas Maccabee. Perea was the most beautiful and picturesque province of all Palestine. It was generally referred to by the Jews as “the land beyond the Jordan.”

165:0.4 (1817.4) Throughout this period Jesus divided his time between the camp at Pella and trips with the twelve to assist the seventy in the various cities where they taught and preached. Under Abner's instructions the seventy baptized all believers, although Jesus had not so charged them.

1. AT THE PELLA CAMP

165:1.1 (1817.5) By the middle of January more than twelve hundred persons were gathered together at Pella, and Jesus taught this multitude at least once each day when he was in residence at the camp, usually speaking at nine o'clock in the morning if not prevented by rain.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taught each afternoon. The evenings Jesus reserved for the usual sessions of questions and answers with the twelve and other advanced disciples. The evening groups averaged about fifty.

165:1.2 (1817.6) By the middle of March, the time when Jesus began his journey toward Jerusalem, over four thousand persons composed the large audience which heard Jesus or Peter preach each morning. The Master chose to terminate his work on earth when the interest in his message had reached a high point, the highest point attained under this second or nonmiraculous phase of the progress of the kingdom. While three quarters of the multitude were truth seekers, there were also present a large number of Pharisees from Jerusalem and elsewhere, together with many doubters and cavilers.

165:1.3 (1818.1) Jesus and the twelve apostles devoted much of their time to the multitude assembled at the Pella camp. The twelve paid little or no attention to the field work, only going out with Jesus to visit Abner's associates from time to time. Abner was very familiar with the Perea district since this was the field in which his former master, John the Baptist, had done most of his work. After beginning the Perea mission, Abner and the seventy never returned to the Pella camp.

제 2 장. 선한 목자에 관한 교훈

300명 이상의 예루살렘 주민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이 봉헌 축제가 끝날 무렵 유대인 관할 구역으로부터 서둘러 떠나시는 예수를 따라 북쪽을 향하여 켈라까지 왔으며; 예수가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說敎)를 할 때 열 두 사도들은 물론 이 유대인 선생들도 참석하였다. 약 100명 정도 되는 무리들과 이야기하면서 30분가량 자유로운 토론을 한 후에 예수가 말씀했다:

“오늘밤에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 대부분은 나의 제자들이지만 증오에 찬 나의 적들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니, 너희는 각자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하여라.

“이 밤에, 내 앞에는 나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앞으로 순교할 자들도 있다;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통의 노예가 된 자들로써, 음흉하고 속이기를 즐기는 너희 영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를 따라와,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삶이, 너희 모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만일 거짓 목자가 눈이 멀었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을 것인데도, 너희는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너희에게 남아있다.

“참 목자는 밤이 되어 위험한 때가 되면 자기 양 무리를 우리 속으로 모은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부를 때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본다. 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 우리 안에 들어간 목자들은 누구든지 도둑이며 강도이다. 참 목자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후에 우리에게 들어가며,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의 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며; 그의 양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참 목자는 그들 앞에서 먼저 가며; 그는 길을 인도하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의 양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그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낯선 자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모인 이 군중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우리를 따라오며; 적어도 그들은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이다. 그리고 양들이 너희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에게 질문하

2. SERMON ON THE GOOD SHEPHERD

165:2.1 (1818.2) A company of over three hundred Jerusalemites, Pharisees and others, followed Jesus north to Pella when he hastened awa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Jewish rulers at the ending of the feast of the dedication; and it was in the presence of these Jewish teachers and leaders, as well as in the hearing of the twelve apostles, that Jesus preached the sermon on the “Good Shepherd.” After half an hour of informal discussion, speaking to a group of about one hundred, Jesus said:

165:2.2 (1818.3) “On this night I have much to tell you, and since many of you are my disciples and some of you my bitter enemies, I will present my teaching in a parable, so that you may each take for yourself that which finds a reception in your heart.

165:2.3 (1818.4) “Tonight, here before me are men who would be willing to die for me and for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some of them will so offer themselves in the years to come; and here also are some of you, slaves of tradition, who have followed me down from Jerusalem, and who, with your darkened and deluded leaders, seek to kill the Son of Man.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shall judge both of you, the true shepherds and the false shepherds. If the false shepherd were blind, he would have no sin, but you claim that you see; you profess to be teachers in Israel; therefore does your sin remain upon you.

165:2.4 (1818.5) “The true shepherd gathers his flock into the fold for the night in times of danger. And when the morning has come, he enters into the fold by the door, and when he calls, the sheep know his voice. Every shepherd who gains entrance to the sheepfold by any other means than by the door is a thief and a robber. The true shepherd enters the fold after the porter has opened the door for him, and his sheep, knowing his voice, come out at his word; and when they that are his are thus brought forth, the true shepherd goes before them; he leads the way and the sheep follow him.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they will not follow a stranger. They will flee from the stranger because they know not his voice. This multitude which is gathered about us here a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but when we speak to them, they know the shepherd's voice, and they follow after us; at least, those who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do. Some of you are not of my fold; you know not my voice, and you do not follow me. And because you are false shepherds, the sheep know not your voice and will not follow you.”

165:2.5 (1819.1) And when Jesus had spoken this

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를 계속하였는데: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대리(代理)-목자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는 제 값을 하는 영도자들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그 양 무리를 먹여야만 한다; 옆에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너희 양 무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중에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확실히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의 양 무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며, 동시에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참 목자이다. 나 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자는 누구든지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돌보는 그들에게, 나는 그 문이다. 내가 만들고 제정한 방법대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초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목자이기도 하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려고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생명을 갖되 더욱 풍성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삶을 받고 일하는 자는 위험이 닥칠 때 양들이 모두 흩어져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칠 것이나; 참 목자는 늑대가 올 때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양 무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내 친구이든지 내 적이든지, 나는 참 목자이다; 나는 나의 양들을 알고 또 나의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위험이 닥쳐도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의 완성인이 봉사를 완결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양 무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으며, 이 말들은 오직 이 세계에서 만 옳은 것이 아니다. 다른 이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보며, 모두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한 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였다. 그렇게 되면 너희 모두는 한 목자,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것이며,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고 이 권역에 있는 그의 모든 양 무리를 내 손에 맡겨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양 무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 내가 나의 양들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의 다양한 양떼들을 위한 봉사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으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만일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다시 그것을 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다른 창조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을 권리와 힘을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힘과 권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리

parable, no one asked him a question. After a time he began again to speak and went on to discuss the parable:

165:2.6 (1819.2) “You who would be the undershepherds of my Father’s flocks must not only be worthy leaders, but you must also feed the flock with good food; you are not true shepherds unless you lead your flocks into green pastures and beside still waters.

165:2.7 (1819.3) “And now, lest some of you too easily comprehend this parable, I will declare that I am both the door to the Father’s sheepfold and at the same time the true shepherd of my Father’s flocks. Every shepherd who seeks to enter the fold without me shall fail, and the sheep will not hear his voice. I, with those who minister with me, am the door. Every soul who enters upon the eternal way by the means I have created and ordained shall be saved and will be able to go on to the attainment of the eternal pastures of Paradise.

165:2.8 (1819.4) “But I also am the true shepherd who is willing even to lay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thief breaks into the fold only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but I have come that you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He who is a hireling, when danger arises, will flee and allow the sheep to be scattered and destroyed; but the true shepherd will not flee when the wolf comes; he will protect his flock and, if necessary, lay down his life for his sheep. Verily, verily, I say to you, friends and enemies, I am the true shepher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I will not flee in the face of danger. I will finish this service of the completion of my Father’s will, and I will not forsake the flock which the Father has intrusted to my keeping.

165:2.9 (1819.5) “But I have many other sheep not of this fold, and these words are true not only of this world. These other sheep also hear and know my voice, and I have promised the Father that they shall all be brought into one fold, one brotherhood of the sons of God. And then shall you all know the voice of one shepherd, the true shepherd, and shall all acknowledge the fatherhood of God.

165:2.10 (1819.6) “And so shall you know why the Father loves me and has put all of his flocks in this domain in my hands for keeping; it is because the Father knows that I will not falter in the safeguarding of the sheepfold, that I will not desert my sheep, and that, if it shall be required, I will not hesitate to lay down my life in the service of his manifold flocks. But, mind you, if I lay down my life, I will take it up again. No man nor any other creature can take away my life. I have the right and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I have the same power and right to take it up again. You cannot understand this, but I received such authority from my Father even before this world was.”

한 권한을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었다.”

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혼동되었으며, 제자들은 몹시 놀랐으나, 반면에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며 말하기를, “그 자는 미쳤든지 아니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선생들은 말했다; “그는 마치 어떤 권한을 가지신 것처럼 말씀하며; 그밖에도, 속에 귀신이 들어 있는 자를 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분이 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이러한 것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이들 유대인 선생들 가운데 반 정도가 다음 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였으며, 나머지 반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루살렘과 고향으로 돌아갔다.

제 3 장. 펠라에서의 안식일 설교

1월 말 안식일 오후까지 군중들의 숫자는 거의 3,000명에 이르렀다. 1월 28일 토요일, 예수는 “신뢰와 영적 방어태세”에 대하여 잊히지 않는 설교를 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서론적인 발표를 한 후에, 주(主)는 말씀했다:

“내가 그 동안 여러 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이제 이 군중들에게도 분명히 말하는데: 선입견을 고수하고 전통의 노예로 길들여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나 가슴이 정직한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나의 제자가 되어 이곳에 있는 자들도 있다. 이제 곧 너희들 모두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납득하게 될 터인데, 이제는 계시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로부터 가려진 것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임무를 완수하게 될 때 모두 알려질 것이다.

“우리의 적들이 지금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잠시 후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붕 위에서 공포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아,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찾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너희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서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불의에서 구원하고 우주의 심판 자리에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제안하실 수 있는 그의 지혜를 기쁨으로 향유하라고 너희에게 충고한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페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새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날아다닐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 알려지지 않고서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세라핌 천사 수호자들에게는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왜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사소한 일들

165:2.11 (1819.7) When they heard these words, his apostles were confused, his disciples were amazed, while the Pharisees from Jerusalem and around about went out into the night, saying, “He is either mad or has a devil.” But even some of the Jerusalem teachers said: “He speaks like one having authority; besides, who ever saw one having a devil open the eyes of a man born blind and do all of the wonderful things which this man has done?”

165:2.12 (1819.8) On the morrow about half of these Jewish teachers professed belief in Jesus, and the other half in dismay returned to Jerusalem and their homes.

3. SABBATH SERMON AT PELLA

165:3.1 (1819.9) By the end of January the Sabbath-afternoon multitudes numbered almost three thousand. On Saturday, January 28, Jesus preached the memorable sermon on “Trust and Spiritual Preparedness.” After preliminary remarks by Simon Peter, the Master said:

165:3.2 (1820.1) “What I have many times said to my apostles and to my disciples, I now declare to this multitude: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born of prejudice and nurtured in traditional bondage, albeit many of these Pharisees are honest of heart and some of them abide here as my disciples. Presently all of you shall understand my teaching, for there is nothing now covered that shall not be revealed. That which is now hid from you shall all be made known when the Son of Man has completed his mission on earth and in the flesh.

165:3.3 (1820.2) “Soon, very soon, will the things which our enemies now plan in secrecy and in darkness be brought out into the light and be proclaimed from the housetops. But I say to you, my friends, when they seek to destroy the Son of Man, be not afraid of them. Fear not those who, although they may be able to kill the body, after that have no more power over you. I admonish you to fear none, in heaven or on earth, but to rejoice in the knowledge of Him who has power to deliver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the judgment seat of a universe.

165:3.4 (1820.3)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And yet, when these birds flit about in quest of their sustenance, not one of them exist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Father, the source of all life. To the seraphic guardians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And if all of this is true, why should you live in fear of the many trifles

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너희 모두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인정할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면서 부인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 서기도 전에, 그의 운명의 수호자에 의하여 부인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거슬러 주께님께 모독하는 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악의 기세로 여기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한 의도적인 반역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너희를 회당 관리들 앞이나 다른 높은 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너희가 왕국 복음에 경의를 표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확실히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결단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왜 두 가지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이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복된 소식을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영적 유산을 기쁘게 얻으라고 얼마나 더 우리가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고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왕국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게 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는 그 초청은 이제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씀을 완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러 갔으며 예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제 4 장. 유산을 나눔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주(主)는 남아있는 자들과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주(主)여,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저와 형에게 남겨 주셨습디만, 형이 제 몫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하라고 제 형에게 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물질을 탐하는 이 젊은이가 장삿속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려는 것에 다소 화가 났지만; 이 경우를 다른 가르침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which come up in your daily lives? I say to you: Fear not; you are of much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165:3.5 (1820.4) “All of you who have had the courage to confess faith in my gospel before men I will presently acknowledge before the angels of heaven; but he who shall knowingly deny the truth of my teachings before men shall be denied by his guardian of destiny even before the angels of heaven.

165:3.6 (1820.5) “Say what you will about the Son of Man, and it shall be forgiven you; but he who presumes to blaspheme against God shall hardly find forgiveness. When men go so far as knowingly to ascribe the doings of God to the forces of evil, such deliberate rebels will hardly seek forgiveness for their sins.

165:3.7 (1820.6) “And when our enemies bring you before the rulers of the synagogues and before other high authorities, be not concerned about what you should say and be not anxious as to how you should answer their questions, for the spirit that dwells within you shall certainly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should say in hono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65:3.8 (1820.7) “How long will you tarry in the valley of decision? Why do you halt between two opinions? Why should Jew or gentile hesitate to accept the good news that he is a son of the eternal God? How long will it take us to persuade you to enter joyfully into your spiritual inheritance? I came into this world to reveal the Father to you and to lead you to the Father. The first I have done, but the last I may not do without your consent; the Father never compels any man to enter the kingdom. The invitation ever has been and always will be: Whosoever will, let him come and freely partake of the water of life.”

165:4.1 (1821.1) As the apostles baptized believers, the Master talked with those who tarried. And a certain young man said to him: “Master, my father died leaving much property to me and my brother, but my brother refuses to give me that which is my own. Will you, then, bid my brother divide this inheritance with me?” Jesus was mildly indignant that this material-minded youth should bring up for discussion such a question of business; but he proceeded to use the occasion for the impartation of further instruction. Said Jesus: “Man, who made

4. DIVIDING THE INHERITANCE

165:4.1 (1821.1) As the apostles baptized believers, the Master talked with those who tarried. And a certain young man said to him: “Master, my father died leaving much property to me and my brother, but my brother refuses to give me that which is my own. Will you, then, bid my brother divide this inheritance with me?” Jesus was mildly indignant that this material-minded youth should bring up for discussion such a question of business; but he proceeded to use the occasion for the impartation of further instruction. Said Jesus: “Man, who made

세상의 물질적인 일에 내가 관심을 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재물의 힘에서 오지 않으며, 기쁨은 부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재물 그 자체는 어떤 재앙의 씨가 아니다, 단지 부(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 이세상의 관련사들에 너무 헌신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혼이 이 땅에 있는 하느님 왕국의 영 실체들의 아름다운 끌어당김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된다.

“내가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는데, 그의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어서; 큰 부자가 되자, 스스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할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재물을 쌓아 둘 곳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말했다; ‘옳지,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창고들을 허물어버리고 훨씬 큰 것들을 지어서, 곡식과 보물들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내 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니, 혼아 네가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은 재물을 가졌구나; 이제 너의 편안함을 누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는 내가 부자이고 물건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리석었다. 자기 마음과 육체의 물질적인 소욕을 만족시켜 주면서, 영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때까지 저축한 재물을 써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리보지 못하다가, 바로 그 날 밤에 그의 혼이 불려갔다. 그 밤에 산적들이 그 집에 들어와 그를 죽이고, 그의 창고들을 약탈한 후에, 남은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은 부동산들은 그의 상속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이 땅에 쌓아 두었으나, 하느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예수는 그 젊은이와 그의 상속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는 자기 문제가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주(主)는 끼어들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현세적인 관련사들이라면 사도들의 경우일지라도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제자들의 경우에도 아주 적었다.

예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물었다; “주(主)여, 저는 당신의 사도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땅에서의 소유를 다 팔았고, 그들은 에센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했다; “나의 친구여, 명예로운 재물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물질적인 소유물로써의 재물이 보물로 전향되어 그것이 너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너의 애정이

me a divider over you? Where did you get the idea that I give attention to the material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n, turning to all who were about him, he said: “Take heed and keep yourselves free from covetousness; a man’s life consists not in the abundance of the things which he may possess. Happiness comes not from the power of wealth, and joy springs not from riches. Wealth, in itself, is not a curse, but the love of riches many times leads to such devotion to the things of this world that the soul becomes blinded to the beautiful attractions of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kingdom of God on earth and to the joys of eternal life in heaven.

165:4.2 (1821.2) “Let me tell you a story of a certain rich man whose ground brought forth plentifully; and when he had become very rich, he began to reason with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with all my riches? I now have so much that I have no place to store my wealth.’ And when he had meditated on his problem, he said: ‘This I will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ones, and thus will I have abundant room in which to store my fruits and my goods. Then can I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uch wealth laid up for many years; take now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for you are rich and increased in goods.’

165:4.3 (1821.3) “But this rich man was also foolish. In providing for the material requirements of his mind and body, he had failed to lay up treasures in heaven for the satisfaction of the spirit and for the salvation of the soul. And even then he was not to enjoy the pleasure of consuming his hoarded wealth, for that very night was his soul required of him. That night there came the brigands who broke into his house to kill him, and after they had plundered his barns, they burned that which remained. And for the property which escaped the robbers his heirs fell to fighting among themselves. This man laid up treasures for himself on earth, but he was not rich toward God.”

165:4.4 (1821.4) Jesus thus dealt with the young man and his inheritance because he knew that his trouble was covetousness. Even if this had not been the case, the Master would not have interfered, for he never meddled with the temporal affairs of even his apostles, much less his disciples.

165:4.5 (1821.5) When Jesus had finished his story, another man rose up and asked him: “Master, I know that your apostles have sold all their earthly possessions to follow you, and that they have all things in common as do the Essenes, but would you have all of us who are your disciples do likewise? Is it a sin to possess honest wealth?” And Jesus replied to this question: “My friend, it is not a sin to have honorable wealth; but it is a sin if you convert the wealth of material possessions into treasures which may absorb your interests

왕국의 영적 추구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전환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의 정직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어떤 죄도 없다,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바로 그 곳에 역시 너희의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탐욕과 자기만족으로 이끄는 재물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재물을 풍성하게 가지면서, 왕국의 일에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넘치도록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그러한 청지기관계의 영으로 베푸는, 재물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돈 없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쪽에 있는 야영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 것은, 인식하지 않은 관대한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를 대접하는 주인인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에 써 달라고 기금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라도 결코 잊지 말라.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종종 어두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다. 재물이 너희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되는 위험성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예수는 낭비나, 게으름이나, 가족들을 위한 물리적 필수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나, 또는 자선금에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한 묵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의 행복에,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서 영적 본성의 진보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 세례 주는 것을 목격하려고 사람들이 강가로 내려간 동안, 처음 왔던 사람이 예수가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산에 관하여 물으려고 예수께 사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을 다시 들으신 주(主)는 대답했다; “야아, 너는 왜 이와 같은 날에 탐욕스러운 기질에 탐닉하여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네가 만일 네 불만스러운 일을 회당의 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상속에 관한 유대인의 법이 정당하게 관리-운영해 주리라는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 너의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성서에서 ‘꼭 틀어쥐고서 아주 인색하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와 같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내 재산으로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아직도 모르며, 죽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쓴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기름을 바른 후에 다른 하느님들에게로 돌아섰다.’는 계명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에서 ‘주님은 탐욕을 멸시한다.’는 것과 ‘의로운 자가 가진 적은 재물이 사악한 자가 가진 많은 재물보다 낫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본심을 두지 말라’는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가 ‘부자로 하여금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한 것과, 에스겔이 진리를 말하기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그들의 본심은 자

and divert your affections from devotion to the spiritual pursuits of the kingdom. There is no sin in having honest possessions on earth provided your treasure is in heaven,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wealth which leads to covetousness and selfishness and that which is held and dispensed in the spirit of stewardship by those who have an abundance of this world's goods, and who so bountifully contribute to the support of those who devote all their energi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Many of you who are here and without money are fed and lodged in yonder tented city because liberal men and women of means have given funds to your host, David Zebedee, for such purposes.

165:4.6 (1822.1) “But never forget that, after all, wealth is unenduring. The love of riches all too often obscures and even destroys the spiritual vision. Fail not to recognize the danger of wealth's becoming, not your servant, but your master.”

165:4.7 (1822.2) Jesus did not teach nor countenance improvidence, idleness, indifference to providing the physical necessities for one's family, or dependence upon alms. But he did teach that the material and temporal must be subordinated to the welfare of the soul and the progress of the spiritual nature in the kingdom of heaven.

165:4.8 (1822.3) Then, as the people went down by the river to witness the baptizing, the first man came privately to Jesus about his inheritance inasmuch as he thought Jesus had dealt harshly with him; and when the Master had again heard him, he replied: “My son, why do you miss the opportunity to feed upon the bread of life on a day like this in order to indulge your covetous disposition? Do you not know that the Jewish laws of inheritance will be justly administered if you will go with your complaint to the court of the synagogue? Can you not see that my work has to do with making sure that you know about your heavenly inheritance? Have you not read the Scripture: ‘There is he who waxes rich by his wariness and much pinching, and this is the portion of his reward: Whereas he says, I have found rest and now shall be able to eat continually of my goods, yet he knows not what time shall bring upon him, and also that he must leave all these things to others when he dies.’ Have you not read the commandment: ‘You shall not covet.’ And again, ‘They have eaten and filled themselves and waxed fat, and then did they turn to other gods.’ Have you read in the Psalms that ‘the Lord abhors the covetous,’ and that ‘the little a righteous man has is better than the riches of many wicked.’ ‘If riches increase, set not your heart upon them.’ Have you read where Jeremiah said, ‘Let not the rich man glory in his riches’; and Ezekiel spoke truth when he said, ‘With their mouths they make a show of love, but their hearts

신의 이익에 가 있다'한 부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는 그 젊은이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얘야, 네가 온 세상을 얻고서 네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심판 날에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께 물어보자, 대답했다; "내가 온 것은 부자나 혹은 가난한자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 때에 재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고려될지 모르지만, 큰 재물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는가?

"2. 어떻게 이 재물을 얻었는가?

"3.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저녁 식사 때까지 자기 텐트에 가서서 잠시 쉬었다. 사도들은 세례 베푸는 일이 끝나자, 그들도 와서 땅에서의 재물과 하늘에서의 보화에 대하여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하였지만, 주(主)는 이미 잠이 드셨다.

제 5 장. 재물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날 밤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함께 모여 매일 갖는 회의를 하는 중에, 안드레가 물었다: "주(主)여, 저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동안, 당신은 우리들이 듣지 못한 많은 말씀들을, 망설이고 있는 군중들에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여 예수가 말씀했다;

"좋다, 안드레야, 너희에게 재물과 자아-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 주겠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왕국의 대사들로서 사도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말하였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왕국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체험을 하였고,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왕국의 사명활동에 너희의 삶을 바쳐왔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혼의 행복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다; 영의 진보가 의복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 양식의 확실성에 의심이 들 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들 모든 각각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또한, 너희가 염려하고 조바심하며 의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염려

are set upon their own selfish gain."

165:4.9 (1822.4) Jesus sent the young man away, saying to him, "My son, what shall it profit you if you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your own soul?"

165:4.10 (1822.5) To another standing near by who asked Jesus how the wealthy would stand in the day of judgment, he replied: "I have come to judge neither the rich nor the poor, but the lives men live will sit in judgment on all. Whatever else may concern the wealthy in the judgment, at least three questions must be answered by all who acquire great wealth, and these questions are:

165:4.11 (1822.6) "1. How much wealth did you accumulate?

165:4.12 (1822.7) "2. How did you get this wealth?

165:4.13 (1822.8) "3. How did you use your wealth?"

165:4.14 (1822.9) Then Jesus went into his tent to rest for a while before the evening meal. When the apostles had finished with the baptizing, they came also and would have talked with him about wealth on earth and treasure in heaven, but he was asleep.

5. TALKS TO THE APOSTLES ON WEALTH

165:5.1 (1823.1) That evening after supper, when Jesus and the twelve gathered together for their daily conference, Andrew asked: "Master, while we were baptizing the believers, you spoke many words to the lingering multitude which we did not hear. Would you be willing to repeat these words for our benefit?" And in response to Andrew's request, Jesus said:

165:5.2 (1823.2) "Yes, Andrew, I will speak to you about these matters of wealth and self-support, but my words to you, the apostles, must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spoken to the disciples and the multitude since you have forsaken everything, not only to follow me, but to be ordained as ambassadors of the kingdom. Already have you had several years' experience, and you know that the Father whose kingdom you proclaim will not forsake you. You have dedicated your lives to the ministry of the kingdom; therefore be not anxious or worried about the things of the temporal life, what you shall eat, nor yet for your body, what you shall wear. The welfare of the soul is more than food and drink; the progress in the spirit is far above the need of raiment. When you are tempted to doubt the sureness of your bread, consider the ravens; they sow not neither reap, they have no storehouses or barns, and yet the Father provides food for every one of them that seeks it. And of how much more value are you

함으로써 네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울 수 있거나, 네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을 만들지도 아니하지만;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라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살아 있다가 내일에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옷을 입히시는데, 하늘왕국의 대사들인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오! 너희 신앙이 적은 자들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면, 너희가 버린 너 자신이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진심으로 복음에 바친다면,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만 믿는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들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함은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기부를 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 너는 네 일에 헌신하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너희 삶을 왕국의 일에 바치면, 너희에게 실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것이다.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를 따르는 것이다.

너희 적은 숫자의 무리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만일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 왕국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단언한다. 돈주머니가 남아지지 않는 곳, 도둑이 약탈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는 곳에 너희 보물을 쌓아 두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듯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 곳에 너희 진심이 마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바로 있을 일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들에게 남겨질 일들 속에서, 너희가 중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너희들 각자는 너희 마음을 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는 결혼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가 문을 두드릴 때에, 빨리 가서 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라. 그러한 하인들은 그와 같은 큰 기회에 그들이 신실하다는 것을 발견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주인이 하인들을 앉혀 놓고 그들에게 시중을 들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바로 앞에 하나의 위기가 있을 것이며, 너희는 조심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than many birds! Besides, all of your anxiety or fretting doubts can do nothing to supply your material needs. Which of you by anxiety can add a handbreadth to your stature or a day to your life? Since such matters are not in your hands, why do you give anxious thought to any of these problems?

165:5.3 (1823.3)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toil not, neither do they spin; yet I say to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alive today and tomorrow is cut down and cast into the fire, how much more shall he clothe you,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O you of little faith! When you wholeheartedly devote yourselves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should not be of doubtful minds concerning the support of yourselves or the families you have forsaken. If you give your lives truly to the gospel, you shall live by the gospel. If you are only believing disciples, you must earn your own bread and contribute to the sustenance of all who teach and preach and heal. If you are anxious about your bread and water, wherein are you different from the nations of the world who so diligently seek such necessities? Devote yourselves to your work, believing that both the Father and I know that you have need of all these things. Let me assure you, once and for all, that, if you dedicate your lives to the work of the kingdom, all your real needs shall be supplied. Seek the greater thing, and the lesser will be found therein; ask for the heavenly, and the earthly shall be included. The shadow is certain to follow the substance.

165:5.4 (1823.4) “You are only a small group, but if you have faith, if you will not stumble in fear, I declare that it is my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is kingdom. You have laid up your treasures where the purse waxes not old, where no thief can despoil, and where no moth can destroy. And as I told the people,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165:5.5 (1824.1) “But in the work which is just ahead of us, and in that which remains for you after I go to the Father, you will be grievously tried. You must all be on your watch against fear and doubts. Every one of you,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s and let your lamps be kept burning. Keep yourselves like men who are watch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the marriage feas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you may quickly open to him. Such watchful servants are blessed by the master who finds them faithful at such a great moment. Then will the master make his servants sit down while he himself serves them.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at a crisis is just ahead in your lives, and it behooves you to watch and be ready.

“어느 때에 도둑이 들어올지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열 두 사도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경고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전에도 들었던 것이지만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었다.

제 6 장.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심

그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이 비유를 사도들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시험이 있을 때에, 사람의 혼이 드러날 것이다; 가슴속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도록 시험될 것이다. 하인이 시험받고 통과되면, 집 주인이 하인에게 식솔들을 맡기면서, 이 신실한 청지기를 틀림없이 신뢰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양육하도록 감독을 맡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의 자녀들의 복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집 주인이 시험에 통과된 참된 하인에게 자기 가족의 관련사들을 맡기듯이, 나도 내 왕국의 관련사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때에 시험을 잘 견딜 자들을 선택하여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하인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슴속에 ‘주인이 돌아오시기를 늦추신다.’고 말하면서 그의 동료 하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면, 하인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의 충실치 못함을 발견하고 그를 가차 없이 쫓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닥쳐올 그 날을 위하여 스스로 잘 준비하도록 하여라. 너희에게 많이 맡겨진 만큼, 너희로부터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격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받아야 할 세례가 내게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지만, 나의 임무는 사람의 물질적인 관련사에 있어서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적어도 당분간은. 가족 중에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척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각자 자기 가슴속에 크고 영원한 평화를 갖게 되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꺼이 믿고 그 세계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나라들,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전파하라.”

165:5.6 (1824.2) “You well understand that no man would suffer his house to be broken into if he knew what hour the thief was to come. Be you also on watch for yourselves, for in an hour that you least suspect and in a manner you think not, shall the Son of Man depart.”

165:5.7 (1824.3) For some minutes the twelve sat in silence. Some of these warnings they had heard before but not in the setting presented to them at this time.

6. ANSWER TO PETER'S QUESTION

165:6.1 (1824.4) As they sat thinking, Simon Peter asked: “Do you speak this parable to us, your apostles, or is it for all the disciples?” And Jesus answered:

165:6.2 (1824.5) “In the time of testing, a man's soul is revealed; trial discloses what really is in the heart. When the servant is tested and proved, then may the lord of the house set such a servant over his household and safely trust this faithful steward to see that his children are fed and nurtured. Likewise, will I soon know who can be trusted with the welfare of my children when I shall have returned to the Father. As the lord of the household shall set the true and tried servant over the affairs of his family, so will I exalt those who endure the trials of this hour in the affairs of my kingdom.

165:6.3 (1824.6) “But if the servant is slothful and begins to say in his heart, ‘My master delays his coming,’ and begins to mistreat his fellow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with the drunken, then the lord of that servant will come at a time when he looks not for him and, finding him unfaithful, will cast him out in disgrace. Therefore you do well to prepare yourselves for that day when you will be visited suddenly and in an unexpected manner. Remember, much has been given to you; therefore will much be required of you. Fiery trials are drawing near you.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I am on watch until this is accomplished. You preach peace on earth, but my mission will not bring peace in the material affairs of men — not for a time, at least. Division can only be the result where two members of a family believe in me and three members reject this gospel. Friends, relatives, and loved ones are destined to be set against each other by the gospel you preach. True, each of these believers shall have great and lasting peace in his own heart, but peace on earth will not come until all are willing to believe and enter into their glorious inheritance of sonship with God. Nevertheless, go in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to all nations,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이렇게 하여 알차고 바쁜 안식일이 지나갔다. 다음 날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페레아 북쪽 지방으로 가서서 아브너의 감독 하에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70인을 방문하였다.

^{165:6.4 (1824.7)} And this was the end of a full and busy Sabbath day. On the morrow Jesus and the twelve went into the cities of northern Perea to visit with the seventy, who were working in these regions under Abner's supervision.

제 166 편 북쪽 페레아의 마지막 방문

⇨ 165

유랜시아 책

16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6 편 북쪽 페레아의 마지막 방문

섹션

소개

제 1 장. 라가바의 바리새인들

제 2 장. 열 명의 나환자들

제 3 장. 게라사에서의 설교

제 4 장.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제 5 장. 필라델피아에서의 집회

PAPER 166

LAST VISIT TO NORTHERN PEREA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harisees at Ragaba

2. The Ten Lepers

3. The Sermon at Gerasa

4. Teaching about Accidents

5. The Congregation at Philadelphia

소개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아브너의 연관-동료들과 여자 무리단의 회원들이 사명활동하고 있는 북쪽 페레아 지방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신저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예수는 사도들에게 왕국 복음이 기적과 이적(異蹟)을 행하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상기시키셨다.

페레아에서의 3달 동안의 사명활동은 열 두 사도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복음은 예수의 개인성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지침을 오랫동안 따르지는 못했는데, 이로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그들은 곧 그의 가르침을 떠나서, 기적적인 개념과 그의 신성한-인간 개인성의 영화로웠던 기억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INTRODUCTION

166:0.1 (1825.1) FROM February 11 to 20, Jesus and the twelve made a tour of all the cities and villages of northern Perea where the associates of Abner and the members of the women's corps were working. They found these messengers of the gospel meeting with success, and Jesus repeatedly called the attention of his apostles to the fact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could spread without the accompaniment of miracles and wonders.

166:0.2 (1825.2) This entire mission of three months in Perea was successfully carried on with little help from the twelve apostles, and the gospel from this time on reflected, not so much Jesus' personality, as his *teachings*. But his followers did not long follow his instructions, for soon after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y departed from his teachings and began to build the early church around the miraculous concepts and the glorified memories of his divine-human personality.

제 1 장. 라가바의 바리새인들

2월 18일 안식일에 예수는 라가바에 있었고, 그 곳에는 나다니엘이라 불리는 부자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다; 지방 전역에서 그의 동료 바리새인

1. THE PHARISEES AT RAGABA

166:1.1 (1825.3) On Sabbath, February 18, Jesus was at Ragaba, where there lived a wealthy Pharisee named Nathaniel; and since quite a number of his

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약 20명쯤 되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안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주빈(主賓)으로 초대하였다.

예수가 이 아침 식사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였을 때, 두 세 명의 율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主)는 물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가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다니엘의 왼쪽에 앉았다. 많은 바리새인들,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과 순전히 예식적인 이러한 행동은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손을 두 번 씻지 아니하고 직접 식탁으로 가신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바리새인들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실천 관행을 주(主)가 지키시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데, 예수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그의 오른 쪽에 앉은 찔찔맞은 바리새인 사이에 어지간한 수군거림이 있고나서, 그리고 주(主)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썹을 여러 번 크게 치켜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는 냉소가 있고나서, 예수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집에 나를 초청하여,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어쩌면 내게 하느님 왕국의 새 복음의 선포에 관하여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자신의 자아-정의로움에 대한 예식적인 헌신을 내보이며 전시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였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한 봉사는 너희가 이제 내게 다 하였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이참에 내가 너희의 손님으로서 너희가 내게 대접할 것이나?”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식탁에 눈을 내려 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무도 대답이 없으므로 예수가 계속했다; “이 자리에 같이한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는 나의 친구들도 많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그들 앞에서 큰 힘으로 닦쳐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컵과 접시들의 겉은 그토록 깨끗하게 닦지만, 영적-음식 그릇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독실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내 보이려고 다짐하지만, 너희의 내부 혼은 자아-정의로움, 탐욕, 강탈, 그리고 영적 사악함의 모든 방식으로 차있다. 너희의 영도자들은 감히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계획까지도 하고 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외적인 태도와 독실한 고백뿐 아니라 혼의 내적인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구제의 기부와 십일조를 지불하는 것이 불의로부터 너희를 씻어낸다면, 모든 사람의 재판관의 현존 안에서 깨끗하게 서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생명의 빛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너희가 십일조를 내는데 어감이 없고 구제하는 것에 화려하게 자랑스럽

fellow Pharisees were following Jesus and the twelve around the country, he made a breakfast on this Sabbath morning for all of them, about twenty in number, and invited Jesus as the guest of honor.

166:1.2 (1825.4) By the time Jesus arrived at this breakfast, most of the Pharisees, with two or three lawyers, were already there and seated at the table. The Master immediately took his seat at the left of Nathaniel without going to the water basins to wash his hands. Many of the Pharisees, especially those favorable to Jesus' teachings, knew that he washed his hands only for purposes of cleanliness, that he abhorred these purely ceremonial performances; so they were not surprised at his coming directly to the table without having twice washed his hands. But Nathaniel was shocked by this failure of the Master to comply with the strict requirements of Pharisaic practice. Neither did Jesus wash his hands, as did the Pharisees, after each course of food nor at the end of the meal.

166:1.3 (1825.5) After considerable whispering between Nathaniel and an unfriendly Pharisee on his right and after much lifting of eyebrows and sneering curling of lips by those who sat opposite the Master, Jesus finally said: “I had thought that you invited me to this house to break bread with you and perchance to inquire of me concerning the proclamation of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but I perceive that you have brought me here to witness an exhibition of ceremonial devotion to your own self-righteousness. That service you have now done me; what next will you honor me with as your guest on this occasion?”

166:1.4 (1826.1) When the Master had thus spoken, they cast their eyes upon the table and remained silent. And since no one spoke, Jesus continued: “Many of you Pharisees are here with me as friends, some are even my disciples, but the majority of the Pharisees are persistent in their refusal to see the light and acknowledge the truth, even when the work of the gospel is brought before them in great power. How carefully you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s and the platters while the spiritual-food vessels are filthy and polluted! You make sure to present a pious and holy appearance to the people, but your inner souls are filled with self-righteousness, covetousness, extortion, and all manner of spiritual wickedness. Your leaders even dare to plot and plan the murder of the Son of Man. Do not you foolish men understand that the God of heaven looks at the inner motives of the soul as well as on your outer pretenses and your pious professions? Think not that the giving of alms and the paying of tithes will cleanse you from unrighteousness and enable you to stand clean in the presence of the Judge of all men. Woe upon you Pharisees who

지만, 너희는 알면서도 하느님의 강림을 업신여겨 물리치고 그의 사랑의 계시를 거절하고 있다. 너희가 이들 사소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비록 옳다할지라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행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만 한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거절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장터에 서서 아첨하는 인사 받기는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알보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수가 떠나고자 일어나려고 했을 때, 식탁에 앉아 있던 율법사 한사람이 그를 말을 걸었다; “그러나 주(主)여, 당신이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사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서선 채로, 율법사에게 대답했다; “바리새인처럼, 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 참아내기에 고통스러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잔치에서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있기를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 밑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도, 너희는 손가락 하나로도 거들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을 위하여 무덤 만들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라! 선지자들이 저희시대에 현시하였던 것—하느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계시하는 것—을 이 시대에 나타나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너희도 찬성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는, 이 뒤틀리고 자아-정의로움의 세대에게 필요되는 것일 수 있다. 서민들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버린 너희 율법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자신이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려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감추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왕국의 문들을 닫을 수 없다;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열어놓았고, 이 자비의 문들은, 마치 흰색 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종류의 영적 더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 선생과 참되지 않은 목자들의 편견과 거만 때문에 닫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나다니엘의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음식을 들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셨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 왕국으로 들어갔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은 흑암 속의 길을 계속하여 고집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를 데려가 시험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그의 말속에서 책을 잡을 때까지 거짓으로 꾸미며 그를 따라다니기로 결정하였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have persisted in rejecting the light of life! You are meticulous in tithing and ostentatious in almsgiving, but you knowingly spurn the visitation of God and reject the revelation of his love. Though it is all right for you to give attention to these minor duties, you should not have left these weightier requirements undone. Woe upon all who shun justice, spurn mercy, and reject truth! Woe upon all those who despise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le they seek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 and crave flattering salutations in the market places!”

166:1.5 (1826.2) When Jesus would have risen to depart, one of the lawyers who was at the table, addressing him, said: “But, Master, in some of your statements you reproach us also. Is there nothing good in the scribes, the Pharisees, or the lawyers?” And Jesus, standing, replied to the lawyer: “You, like the Pharisees, delight in the first places at the feasts and in wearing long robes while you put heavy burdens, grievous to be borne, on men’s shoulders. And when the souls of men stagger under these heavy burdens, you will not so much as lift with one of your fingers. Woe upon you who take your greatest delight in building tombs for the prophets your fathers killed! And that you consent to what your fathers did is made manifest when you now plan to kill those who come in this day doing what the prophets did in their day — proclaiming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revealing the mercy of the heavenly Father. But of all the generations that are past, the blood of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shall be required of this perverse and self-righteous generation. Woe upon all of you lawyers who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from the common people! You yourselves refuse to enter into the way of truth, and at the same time you would hinder all others who seek to enter therein. But you cannot thus shut up the door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se we have opened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enter, and these portals of mercy shall not be closed by the prejudice and arrogance of false teachers and untrue shepherds who are like whited sepulchres which, while outwardly they appear beautiful, are inwardly full of dead men’s bones and all manner of spiritual uncleanness.”

166:1.6 (1826.3) And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t Nathaniel’s table, he went out of the house without partaking of food. And of the Pharisees who heard these words, some became believers in his teaching and entered into the kingdom, but the larger number persisted in the way of darkness, becoming all the more determined to lie in wait for him that they might catch some of his words which could be used to bring him to trial and judgment before the Sanhedrin at Jerusalem.

166:1.7 (1827.1) There were just three things to which the Pharisees paid particular attention:

1. 철저한 십일조 실천 관행.
2. 정화의 율법을 빈틈없이 준수함.
3. 모든 비(非)-바리새인과의 관계를 피함

이 경우에 예수님은 처음 두 가지 실천 관행에 대하여 영적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으며, 반면에 비(非)-바리새인들과 사회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려고 계획했던 자신의 언급은, 이다음에 이 동일한 무리들 중 여러 사람들과 다시 식사할 때 하려고 뒤로 미루셨다.

제 2 장. 열 명의 나환자들

예수님은 다음 날 열 두 사도들과 사마리아 접경에 있는 아마투스에 가셨으며, 도시에 가까워질 때 이곳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열 명의 나환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 중에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으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대개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거나 같이 있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공통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모든 종교적인 선입관들이 무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고, 전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과 병 고침을 알고 있었으며, 70인들이 주(主)가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실천 관행 때문에, 주(主)가 열 두 사도들과 이곳에 왔을 때, 열 명의 나환자들은 이 무렵에 이 장소 근처로 지나가시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관심을 살판한 도시 외곽의 이곳으로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려고 기다렸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본 열 명의 나환자들은 그에게 감히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그에게 외쳤다: “주(主)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저희를 깨끗케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저희들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방금 열 두 사도들에게, 페레아 지방의 이방인들과 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더 보수적이며 전통에 얽매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70인이 전파한 복음을 왜 더욱 기꺼이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지가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열 두 사도들은 오랫동안 멀리되어 온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직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열심당원 시몬은 그 나환자들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로 하여금 그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지나쳐 가시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가 시몬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일 이 열 사람을 온전케 한다면,

166:1.8 (1827.2) 1. The practice of strict tithing.

166:1.9 (1827.3) 2. Scrupulous observance of the laws of purification.

166:1.10 (1827.4) 3. Avoidance of association with all non-Pharisees.

166:1.11 (1827.5) At this time Jesus sought to expose the spiritual barrenness of the first two practices, while he reserved his remarks designed to rebuke the Pharisees' refusal to engage in social intercourse with non-Pharisees for another and subsequent occasion when he would again be dining with many of these same men.

2. THE TEN LEPERS

166:2.1 (1827.6) The next day Jesus went with the twelve over to Amathus, near the border of Samaria, and as they approached the city, they encountered a group of ten lepers who sojourned near this place. Nine of this group were Jews, one a Samaritan. Ordinarily these Jews would have refrained from all association or contact with this Samaritan, but their common affliction was more than enough to overcome all religious prejudice. They had heard much of Jesus and his earlier miracles of healing, and since the seventy made a practice of announcing the time of Jesus' expected arrival when the Master was out with the twelve on these tours, the ten lepers had been made aware that he was expected to appear in this vicinity at about this time; and they were, accordingly, posted here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here they hoped to attract his attention and ask for healing. When the lepers saw Jesus drawing near them, not daring to approach him, they stood afar off and cried to him: "Master, have mercy on us; cleanse us from our affliction. Heal us as you have healed others."

166:2.2 (1827.7) Jesus had just been explaining to the twelve why the gentiles of Perea, together with the less orthodox Jews, were more willing to believe the gospel preached by the seventy than were the more orthodox and tradition-bound Jews of Judea. He had called thei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ir message had likewise been more readily received by the Galileans, and even by the Samaritans. But the twelve apostles were hardly yet willing to entertain kind feelings for the long-despised Samaritans.

166:2.3 (1827.8) Accordingly, when Simon Zelotes observed the Samaritan among the lepers, he sought to induce the Master to pass on into the city without even hesitating to exchange greetings with them. Said Jesus to Simon: "But what if the Samaritan loves God as well as the Jews? Should we sit in judgment on our fellow men? Who can tell? if we make these ten men whole, perhaps the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감사를 표시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네 의견이 맞을 것이라고 느끼느냐?” 그리고 시몬이 곧 대답하기를, “저들을 깨끗케 해 주시면, 곧 아시게 되겠습니 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그렇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너도 곧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나환자들에게 다가가서서 말씀했다; “너희가 만일 온전해진다면,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고침 받고 있음을 보고, 돌아와 예수를 찾으려서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주(主)를 찾은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아홉 명의 다른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발견하였으며, 그들도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이 아직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주(主)는 열 두 제자들 특히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했다; “열 사람이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다.” 그러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는 사도들을 다시 바라보셨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를 쳐다보았지만, 열심당원 시몬은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열 두 사도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예수도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

열 사람 모두가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만이 병에 걸렸었다. 다른 여섯 명은 나병이라고 오인한 피부병을 치료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예수는 열 두 사도들에게 나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아마투스에 들어가실 즈음에 주의를 주셨다: “집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허락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너희가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증여할 때 감사드리는데 소홀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낯선 자들은 집의 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들일 때는, 무척 놀라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들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사도들은 주(主)의 말씀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Samaritan will prove more grateful even than the Jews. Do you feel certain about your opinions, Simon?” And Simon quickly replied, “If you cleanse them, you will soon find out.” And Jesus replied: “So shall it be, Simon, and you will soon know the truth regarding the gratitude of men and the loving mercy of God.”

166:2.4 (1827.9) Jesus, going near the lepers, said: “If you would be made whole, go forthwith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s required by the law of Moses.” And as they went, they were made whole. But when the Samaritan saw that he was being healed, he turned back and, going in quest of Jesus, began to glorify God with a loud voice. And when he had found the Master, he fell on his knees at his feet and gave thanks for his cleansing. The nine others, the Jews, had also discovered their healing, and while they also were grateful for their cleansing, they continued on their way to show themselves to the priests.

166:2.5 (1828.1) As the Samaritan remained kneeling at Jesus’ feet, the Master, looking about at the twelve, especially at Simon Zelotes, sai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then, are the other nine, the Jews? Only one, this alien, has returned to give glory to God.” And then he said to the Samaritan, “A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166:2.6 (1828.2) Jesus looked again at his apostles as the stranger departed. And the apostles all looked at Jesus, save Simon Zelotes, whose eyes were downcast. The twelve said not a word. Neither did Jesus speak; it was not necessary that he should.

166:2.7 (1828.3) Though all ten of these men really believed they had leprosy, only four were thus afflicted. The other six were cured of a skin disease which had been mistaken for leprosy. But the Samaritan really had leprosy.

166:2.8 (1828.4) Jesus enjoined the twelve to say nothing about the cleansing of the lepers, and as they went on into Amathus, he remarked: “You see how it is that the children of the house, even when they are insubordinate to their Father’s will, take their blessings for granted. They think it a small matter if they neglect to give thanks when the Father bestows healing upon them, but the strangers, when they receive gifts from the head of the house, are filled with wonder and are constrained to give thanks in recognition of the good things bestowed upon them.” And still the apostles said nothing in reply to the Master’s words.

제 3 장. 게라사에서의 설교

3. THE SERMON AT GERASA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이 왕국 메신저들과 함께

166:3.1 (1828.5) As Jesus and the twelve visited with

게라사를 방문하자, 그를 믿는 바리새인 하나가 질문하였다. “주님, 실제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너희는 배워왔으며; 이방인 중에서는 오직 양자 된 자들만이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배워왔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로써, 성서에 기록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늘의 왕국을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그 입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다른 속담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도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이 문을 통해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속담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어가기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 그리고 아들은,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즐기고 자기만족을 탐닉하면서, 왕국에 들어가기로 미루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 체함으로서 왕국에 들어가기는 거절하다가, 그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길이 앞으로 계시될 때 그리로 들어가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성의 모습으로 왔을 때 왕국을 거절하였던 자들이 신성의 모습으로 계시되는 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러한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미 왕국의 시민이 될 기회를 가졌었지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자비를 거부하였다; 문이 열려있을 때 여러 번 초대하였지만 너희가 번번이 거절하였다. 이제는, 구원을 거부한 너희들에게는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자기 영화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봉헌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혼은 아버지의 왕국에 등을 돌리면서, 몸과 마음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때 나는 너희가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있는 왕국에서 사심없는 봉사의 상을 받은 사람들 속으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희들이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저희를 길에서 가르치치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때에, 나는 다시 한 번 너희가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at Gerasa, one of the Pharisees who believed in him asked this question: “Lord, will there be few or many really saved?” And Jesus, answering, said:

166:3.2 (1828.6) “You have been taught that only the children of Abraham will be saved; that only the gentiles of adoption can hope for salvation. Some of you have reasoned that, since the Scriptures record that only Caleb and Joshua from among all the hosts that went out of Egypt liv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only a comparatively few of those who seek the kingdom of heaven shall find entrance thereto.

166:3.3 (1828.7) “You also have another saying among you, and one that contains much truth: That the way which leads to eternal life is straight and narrow, that the door which leads thereto is likewise narrow so that, of those who seek salvation, few can find entrance through this door. You also have a teaching that the way which leads to destruction is broad, that the entrance thereto is wide, and that there are many who choose to go this way. And this proverb is not without its meaning. But I declare that salvation is first a matter of your personal choosing. Even if the door to the way of life is narrow, it is wide enough to admit all who sincerely seek to enter, for I am that door. And the Son will never refuse entrance to any child of the universe who, by faith, seeks to find the Father through the Son.

166:3.4 (1829.1) “But herein is the danger to all who would postpone their entrance into the kingdom while they continue to pursue the pleasures of immaturity and indulge the satisfactions of selfishness: Having refused to enter the kingdom as a spiritual experience, they may subsequently seek entrance thereto when the glory of the better way becomes revealed in the age to come. And when, therefore, those who spurned the kingdom when I came in the likeness of humanity seek to find an entrance when it is revealed in the likeness of divinity, then will I say to all such selfish ones: I know not whence you are. You had your chance to prepare for this heavenly citizenship, but you refused all such proffers of mercy; you rejected all invitations to come while the door was open. Now, to you who have refused salvation, the door is shut. This door is not open to thos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for selfish glory. Salvation is not for those who are unwilling to pay the price of wholehearted dedication to doing my Father’s will. When in spirit and soul you have turned your backs upon the Father’s kingdom, it is useless in mind and body to stand before this door and knock, saying, ‘Lord, open to us; we would also be great in the kingdom.’ Then will I declare that you are not of my fold. I will not receive you to be among those who have fought the good fight of faith and won the reward of unselfish service in the kingdom on earth. And when you say, ‘Did we not

에서 아버지의 자비의 사명활동에서의 동료 하인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심판관들이 너희에게 '사악한 불의를 즐겨 행한 너희 모두는 우리로부터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러한 영속하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는 장차,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영화로운 왕국에서 이방 나라들의 믿는 자들과 함께 앉아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 있는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힘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공격하여 왕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물려올 것이다. 그리고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선적이며 좁은 길을 제시하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에 비하여 참으로 새롭고도 모호한 해석이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가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가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에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찾는 오랜 그리고 열매 가득한 예배봉사 속에서 언제까지나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그 문이며, 내가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배에 태워질 것이다.”라는 그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모든 물질적인 방해물 해체 나갈 목적으로 영적 힘을 사용할 필요성과, 하느님의 자유화된 아들들로서 영 속에서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현세적 방해물들을 극복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제 4 장.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하였지만, 예수와 사도들은 여행을 할 때 늘 정오에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서 그러한 정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eat and drink with you, and did you not teach in our streets?’ then shall I again declare that you are spiritual strangers; that we were not fellow servants in the Father’s ministry of mercy on earth; that I do not know you; and then shall the Judge of all the earth say to you: ‘Depart from us, all you who have taken delight in the works of iniquity.’

166:3.5 (1829.2) “But fear not; every one who sincerely desires to find eternal life by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God shall certainly find such everlasting salvation. But you who refuse this salvation will some day see the prophets of the seed of Abraham sit down with the believers of the gentile nations in this glorified kingdom to partake of the bread of life and to refresh themselves with the water thereof. And they who shall thus take the kingdom in spiritual power and by the persistent assaults of living faith will come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and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behold,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ose who are last will many times be first.”

166:3.6 (1829.3) This was indeed a new and strange version of the old and familiar proverb of the straight and narrow way.

166:3.7 (1829.4) Slowly the apostles and many of the disciples were learning the meaning of Jesus’ early declaration: “Unless you are born again, born of the spirit,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Nevertheless, to all who are honest of heart and sincere in faith, it remains eternally true: “Behold, I stand at the doors of men’s hearts and knock, and if any man will open to me, I will come in and sup with him and will feed him with the bread of life; we shall be one in spirit and purpose, and so shall we ever be brethren in the long and fruitful service of the search for the Paradise Father.” And so, whether few or many are to be saved altogether depends on whether few or many will heed the invitation: “I am the door, I am the new and living way, and whosoever wills may enter to embark upon the endless truth-search for eternal life.”

166:3.8 (1829.5) Even the apostles were unable fully to comprehend his teaching as to the necessity for using spiritual force for the purpose of breaking through all material resistance and for surmounting every earthly obstacle which might chance to stand in the way of grasping the all-important spiritual values of the new life in the spirit as the liberated sons of God.

4. TEACHING ABOUT ACCIDENTS

166:4.1 (1830.1) While most Palestinians ate only two meals a day, it was the custom of Jesus and the apostles, when on a journey, to pause at midday for rest and refreshment. And it was at such a

멈추었을 때, 도마가 예수께 질문을 하였다. “주(主)여, 오늘 아침에 오던 길에서 말씀한 것들 중에,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신기하고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영적 존재들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천사들과 다른 영적 존재들이 어떤 우연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거부하는 지를 내가 지켜보지 못하였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계시와, 그의 고통 받는 자녀들을 때로 고쳐 주었던 것을 제쳐놓고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생 속에서 현시되는 영적 세상의 힘을 보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모두, 번영은 신성한 허락을 인정받은 표시이다; 재난은 하느님의 언짢음의 증거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러한 믿음은 미신들이다. 가난한 자의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지켜보지 않느냐? 만일 부유함이 신성한 은혜를 입증한다면, 부자가 하늘로부터 온 이 좋은 소식을 믿기를 왜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겠는가?

“아버지는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마찬가지로 햇빛도 온당한 자나 부당한 자에게나 비추신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의 땅대를 짓다가 18명이 떨어져 죽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들보다 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무리들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들의 하나로 인한 희생자였을 뿐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너와 너의 동료들이 이 땅 위에 함께 삶을 사는 일생의 한 부분으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저들 사건을 내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2. 자연에서의 우연한 사고, 사람에서의 재난이, 그러한 발생사건들이 도저히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도 세상에 있는 영적 기세들에 의해 산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에 어찌다가 네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3.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순응하려는 너의 직접적인 노력의 수확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

“자기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이

noontide stop on the way to Philadelphia that Thomas asked Jesus: “Master, from hearing your remarks as we journeyed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inquire whether spiritual beings are concerned in the production of strange and extraordinary events in the material world and, further, to ask whether the angels and other spirit beings are able to prevent accidents.”

166:4.2 (1830.2) In answer to Thomas's inquiry,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continue to ask me such questions? Have you failed to observe how the Son of Man lives as one with you and consistently refuses to employ the forces of heaven for his personal sustenance? Do we not all live by the same means whereby all men exist? Do you see the power of the spiritual world manifested in the material life of this world, save for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metime healing of his afflicted children?

166:4.3 (1830.3) “All too long have your fathers believed that prosperity was the token of divine approval; that adversity was the proof of God's displeasure. I declare that such beliefs are superstitions. Do you not observe that far greater numbers of the poor joyfully receive the gospel and immediately enter the kingdom? If riches evidence divine favor, why do the rich so many times refuse to believe this good news from heaven?

166:4.4 (1830.4) “The Father causes his rain to fall on the just and the unjust; the sun likewise shines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You know about thos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mingled with the sacrifices, but I tell you these Galileans were not in any manner sinners above all their fellows just because this happened to them. You also know about the eighteen men upon whom the tower of Siloam fell, killing them. Think not that these men who were thus destroyed were offenders above all their brethren in Jerusalem. These folks were simply innocent victims of one of the accidents of time.

166:4.5 (1830.5) “There are three groups of events which may occur in your lives:

166:4.6 (1830.6) “1. You may share in those normal happenings which are a part of the life you and your fellows live on the face of the earth.

166:4.7 (1830.7) “2. You may chance to fall victim to one of the accidents of nature, one of the mischances of men, knowing full well that such occurrences are in no way prearranged or otherwise produced by the spiritual forces of the realm.

166:4.8 (1830.8) “3. You may reap the harvest of your direct efforts to comply with the natural laws governing the world.

166:4.9 (1830.9) “There was a certain man who

있었는데, 여러 번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자, 농부들을 앞에 불러서 말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세 번이나 왔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러나 우두머리 농부가 주인에게 말했다; ‘그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일 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하여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들이 수확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였을 때, 그 나무는 잘 살고 상태가 좋았으므로, 그들은 많은 수확을 보았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상태는 물질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건강이 하늘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듯이, 질병도 하느님의 진노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인간 자녀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물질적 것들을 차별 없이 증여하고 있다. 영적 선물을 증여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이 신성한 자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용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비록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실 지라도, 영적 선물들을 수여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의해 제한을 받으신다.”

필라델피아로 가면서, 예수는 사고와 질병 그리고 기적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계속하여 대답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한 시간 동안의 가르침으로도 일생토록 믿어오던 것을 충분히 바꾸지는 못하였으므로, 예수는 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도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의 의미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었다.

제 5 장. 필라델피아에서의 집회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필라델피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페레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무리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필라델피아안에서 70인의 가르침을 포옹하여, 그로써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公會)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았었다. 이때 아브너는 필라델피아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씩 가르쳤다.

바로 이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인 교회가 되었고, 동쪽 지방으로 복음을 공급하기 위한 선교 본부가 되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주(主)의 가르

planted a fig tree in his yard, and when he had many times sought fruit thereon and found none, he called the vinedressers before him and said: ‘Here have I come these three seasons looking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 found none. Cut down this barren tree; why should it encumber the ground?’ But the head gardener answered his master: ‘Let it alone for one more year so that I may dig around it and put on fertilizer, and then, next year, if it bears no fruit, it shall be cut down.’ And when they had thus complied with the laws of fruitfulness, since the tree was living and good, they were rewarded with an abundant yield.

166:4.10 (1831.1) “In the matter of sickness and health, you should know that these bodily states are the result of material causes; health is not the smile of heaven, neither is affliction the frown of God.

166:4.11 (1831.2) “The Father’s human children have equal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material blessings; therefore does he bestow things physical upon the children of men without discrimination. When it comes to the bestowal of spiritual gifts, the Father is limited by man’s capacity for receiving these divine endowments. Although the Father is no respecter of persons, in the bestowal of spiritual gifts he is limited by man’s faith and by his willingness always to abide by the Father’s will.”

166:4.12 (1831.3) As they journeyed on toward Philadelphia, Jesus continued to teach them and to answer their questions having to do with accidents, sickness, and miracles, but they were not able fully to comprehend this instruction. One hour of teaching will not wholly change the beliefs of a lifetime, and so Jesus found it necessary to reiterate his message, to tell again and again that which he wished them to understand; and even then they failed to grasp the meaning of his earth mission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5. THE CONGREGATION AT PHILADELPHIA

166:5.1 (1831.4) Jesus and the twelve were on their way to visit Abner and his associates, who were preaching and teaching in Philadelphia. Of all the cities of Perea, in Philadelphia the largest group of Jews and gentiles, rich and poor, learned and unlearned, embraced the teachings of the seventy, thereby entering into the kingdom of heaven. The synagogue of Philadelphia had never been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Sanhedrin at Jerusalem and therefore had never been closed to the teachings of Jesus and his associates. At this very time, Abner was teaching three times a day in the Philadelphia synagogue.

166:5.2 (1831.5) This very synagogue later on became a Christian church and was the missionary headquarters for the promulgation of the gospel

침에 대한 요새였으며,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독보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의 중심지였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필라델피아의 유대인들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필라델피아의 신자들 회중과 심각하게 다투기 시작하였다. 아브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예루살렘과의 이 불화로 인하여, 아브너에 대한 기록과 복음에 대한 그의 업적이 신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이러한 반목은 야고보와 아브너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해파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안디옥이 북서쪽에서 초대 교회의 본부였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남동쪽에서 실제적인 본부였다.

아브너가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영도자들과 불화 하였던 것은 불행이었음에 틀림없다. 그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예수의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치리와 관리-행정에 관한 의문점에서 서로 사이가 벌어졌으며; 바울과는 철학과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 헤어졌다. 아브너의 철학은 그리스적이기보다는 바빌론 사상에 더 가까웠으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에는 그리스-로마의 신자들에게 신비로운 일들에 대하여 반대될 만한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개조하려는 바울의 모든 시도들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래서 아브너는 하는 수 없이 고립된 일생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대지 않는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후에 베드로의 지지를 받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히 도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전에 같은 연관-동료들이었던 모든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에 그는 바울에게 도전하였다. 그가 비록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있어서는 바울과 전적으로 깊이 공감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이 있을 때 그를 지지하기는 하였지만,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한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는 몹시 반대하였다. 아브너는 말년에 바울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가르침들을 교묘하게 변조시킨 자"라고 비난하였다.

아브너의 말년과 그 후 얼마 동안,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자들은 그가 사셨던 대로 그리고 가르치셨던 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무리들보다도 더 순전하게 예수의 종교를 유지하였다.

아브너는 89세의 나이로, 서기 74년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왕국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한 가르쳤다.

through the regions to the east. It was long a stronghold of the Master's teachings and stood alone in this region as a center of Christian learning for centuries.

^{166:5.3 (1831.6)} The Jews at Jerusalem had always had trouble with the Jews of Philadelphia. And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e Jerusalem church, of which James the Lord's brother was head, began to have serious difficulties with the Philadelphia congregation of believers. Abner became the head of the Philadelphia church, continuing as such until his death. And this estrangement with Jerusalem explains why nothing is heard of Abner and his work in the Gospel records of the New Testament. This feud between Jerusalem and Philadelphia lasted throughout the lifetimes of James and Abner and continued for some time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Philadelphia was really the headquarters of the early church in the south and east as Antioch was in the north and west.

^{166:5.4 (1831.7)} It was the apparent misfortune of Abner to be at variance with all of the leaders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He fell out with Peter and James (Jesus' brother) over questions of administrati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Jerusalem church; he parted company with Paul over differences of philosophy and theology. Abner was more Babylonian than Hellenic in his philosophy, and he stubbornly resisted all attempts of Paul to remake the teachings of Jesus so as to present less that was objectionable, first to the Jews, then to the Greco-Roman believers in the mysteries.

^{166:5.5 (1832.1)} Thus was Abner compelled to live a life of isolation. He was head of a church which was without standing at Jerusalem. He had dared to defy James the Lord's brother, who was subsequently supported by Peter. Such conduct effectively separated him from all his former associates. Then he dared to withstand Paul. Although he was wholly sympathetic with Paul in his mission to the gentiles, and though he supported him in his contentions with the church at Jerusalem, he bitterly opposed the version of Jesus' teachings which Paul elected to preach. In his last years Abner denounced Paul as the "clever corrupter of the lif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the living God."

^{166:5.6 (1832.2)} During the later years of Abner and for some time thereafter, the believers at Philadelphia held more strictly to the religion of Jesus, as he lived and taught, than any other group on earth.

^{166:5.7 (1832.3)} Abner lived to be 89 years old, dying at Philadelphia on the 21st day of November, A.D. 74. And to the very end he was a faithful believer in, and teacher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제 167 편 필라델피아 방문

⇨ 166

유랜시아 책

16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7 편 필라델피아 방문

섹션

소개

- 제 1 장. 바리새인들과의 아침 식사
- 제 2 장. 큰 만찬의 비유
- 제 3 장. 허약한 영을 가진 여인
- 제 4 장. 베다니에서 온 소식
- 제 5 장. 베다니로 가는 길
- 제 6 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 제 7 장.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PAPER 167

THE VISIT TO PHILADELPHIA

SECTIONS

Introduction

- 1. Breakfast with the Pharisees
- 2. Parable of the Great Supper
- 3. The Woman with the Spirit of Infirmity
- 4. The Message from Bethany
- 5. On the Way to Bethany
- 6. Blessing the Little Children
- 7. The Talk about Angels

소개

페레아에서 사명활동한 이 기간 동안, 70인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소에 예수와 사도들이 방문하겠다는 것을 알렸을 때, 펠라에서 적어도 두 명의 사도들은 군중들을 가르치기 위해 떠나는 실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오직 열 명만이 주(主)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수가 필라델피아로 갈 준비를 하자,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주(主)가 페레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펠라의 야영지를 떠나실 때, 300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600명 이상이 그를 따라왔다.

열 명의 나환자를 고친 일 외에는, 데카폴리스를 지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페레아 전도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 시기는 복음이 기적 없이도 힘 있게 전파된 기간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의 개인적 현존이 없었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없이 이루어졌다.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2월 22일 수요일에

INTRODUCTION

167:0.1 (1833.1) THROUGHOUT this period of the Perea ministry, when mention is made of Jesus and the apostles visiting the various localities where the seventy were at work, it should be recalled that, as a rule, only ten were with him since it was the practice to leave at least two of the apostles at Pella to instruct the multitude. As Jesus prepared to go on to Philadelphia, Simon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returned to the Pella encampment to teach the crowds there assembled. When the Master left the camp at Pella to visit about Perea, it was not uncommon for from three to five hundred of the campers to follow him. When he arrived at Philadelphia, he was accompanied by over six hundred followers.

167:0.2 (1833.2) No miracles had attended the recent preaching tour through the Decapolis, and, excepting the cleansing of the ten lepers, thus far there had been no miracles on this Perea mission. This was a period when the gospel was proclaimed with power, without miracles, and most of the time without the personal presence of Jesus or even of his apostles.

167:0.3 (1833.3) Jesus and the ten apostles arrived at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최근의 여행과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면서 보냈다. 그 금요일 밤에 야고보가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에는 총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인근 마을들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대하여 많은 기쁨을 향유하였다. 다윗의 메신저들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왕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Philadelphia on Wednesday, February 22, and spent Thursday and Friday resting from their recent travels and labors. That Friday night James spoke in the synagogue, and a general council was called for the following evening. They were much rejoiced over the progress of the gospel at Philadelphia and among the near-by villages. The messengers of David also brought word of the further advancement of the kingdom throughout Palestine, as well as good news from Alexandria and Damascus.

제 1 장. 바리새인들과의 아침 식사

1. BREAKFAST WITH THE PHARISEES

아브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매우 부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어느 바리새인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안식일 아침 식사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이 무렵에 예수가 필라델피아에 오시리라는 소문이 퍼져있었으므로; 많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큰 무리의 방문객들이 예루살렘과 다른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들었다. 따라서 약 40 명의 영도하는 사람들과 몇 명의 율법사들이, 주(主)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다.

167:1.1 (1833.4) There lived in Philadelphia a very wealthy and influential Pharisee who had accepted the teachings of Abner, and who invited Jesus to his house Sabbath morning for breakfast. It was known that Jesus was expected in Philadelphia at this time; so a large number of visitors, among them many Pharisees, had come over from Jerusalem and from elsewhere. Accordingly, about forty of these leading men and a few lawyers were bidden to this breakfast, which had been arranged in honor of the Master.

예수가 아브너와 이야기하면서 문 옆에 서 계신데, 주인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영도하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며, 산헤드린의 회원인 한 사람이 자기 습관대로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왼쪽 명예 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主)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었으며, 오른쪽 자리는 아브너가 앉게 되어 있었으므로, 주인이 그 예루살렘 바리새인에게 손짓하여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앉도록 하자, 이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명예의 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167:1.2 (1833.5) As Jesus lingered by the door, speaking with Abner, and after the host had seated himself, there came into the room one of the leading Pharisees of Jerusalem, a member of the Sanhedrin, and as was his habit, he made straight for the seat of honor at the left of the host. But since this place had been reserved for the Master and that on the right for Abner, the host beckoned the Jerusalem Pharisee to sit four seats to the left, and this dignitary was much offended because he did not receive the seat of honor.

곧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고,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거나 또는 복음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으므로, 서로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만 그의 적들만이, 주(主)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예식으로 손을 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아브너는 식사 시작 전에는 손을 씻었으나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는 씻지 않았다.

167:1.3 (1834.1) Soon they were all seated and enjoying the visiting among themselves since the majority of those present were disciples of Jesus or else were friendly to the gospel. Only his enemies took notice of the fact that he did not observe the ceremonial washing of his hands before he sat down to eat. Abner washed his hands at the beginning of the meal but not during the serving.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오랫동안 만성병으로 시달리다가 이제는 수종(水腫)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길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믿는 자였으며, 최근에 아브너의 연관-동료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었다. 그 사람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가득 메워진 군중들을 피하면서 주(主)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主)는 잘 알고 계셨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기적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딱한 상태가 주(主)의 연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슴속에 궁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가 방에 들어올

167:1.4 (1834.2) Near the end of the meal there came in from the street a man long afflicted with a chronic disease and now in a dropsical condition. This man was a believer, having recently been baptized by Abner's associates. He made no request of Jesus for healing, but the Master knew full well that this afflicted man came to this breakfast hoping thereby to escape the crowds which thronged him and thus be more likely to engage his attention. This man knew that few miracles were then being performed; however, he had reasoned in his heart that his sorry plight might possibly appeal to the Master's

때 예루살렘에서 온 자아-정의로운 바리새인과 예수가 그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은, 그러한 자가 이 방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것에 대해 분개심을 나타내는 말을 재빨리 뱉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병자를 보시고 매우 온화한 미소를 띠셨으므로 그는 다가와서 바닥에 앉았다. 식사가 끝나자 주(主)는 손님으로 온 연관-동료들을 바라보시고, 수종중에 걸린 그 사람을 의미심장하게 잠깐 보신 후에, 말씀했다; “나의 친구들아,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학식 있는 율법사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하고 싶다: 병들어 고생하는 자를 안식일 날에 고쳐주는 것이 합법적이나, 아니냐?” 그러나 그곳에 온 그들은 예수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는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로 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였다.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가 고쳐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가슴속에 있는 갈망과 너의 혼에서의 신앙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방을 나서기 전에, 예수는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왕국에 들어오라고 너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동물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즉시 가서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주인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예수는 일어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가 결혼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와서 그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 사건 안에서,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혜일 터인데,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잔치상에 가서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손님들을 보다가 너에게 ‘나의 친구여,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현존 안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녁 식사나 만찬을 베풀 때, 네 친구, 네 형제, 너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부유한 이웃들, 그들이 답례로 너희를 자기 잔치에 초대할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보상을 되돌려 받게 될, 그러한 이웃들만을 항상 청하지는 마라. 잔치를 베풀 때에 가끔 가난한 자, 불구자, 눈이 먼 자들을 초대하여라. 이런 방법으로 너희는 너희 가슴 안에 축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은 너희의 사랑 넘친 사명활동을 갚을 수가 없음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compassion. And he was not mistaken, for, when he entered the room, both Jesus and the self-righteous Pharisee from Jerusalem took notice of him. The Pharisee was not slow to voice his resentment that such a one should be permitted to enter the room. But Jesus looked upon the sick man and smiled so benignly that he drew near and sat down upon the floor. As the meal was ending, the Master looked over his fellow guests and then, after glancing significantly at the man with dropsy, said: “My friends, teachers in Israel and learned lawyers,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s it lawful to heal the sick and afflicted on the Sabbath day, or not?” But those who were there present knew Jesus too well; they held their peace; they answered not his question.

167:1.5 (1834.3) Then went Jesus over to where the sick man sat and, taking him by the hand, said: “Arise and go your way. You have not asked to be healed, but I know the desire of your heart and the faith of your soul.” Before the man left the room, Jesus returned to his seat and, addressing those at the table, said: “Such works my Father does, not to tempt you into the kingdom, but to reveal himself to those who are already in the kingdom. You can perceive that it would be like the Father to do just such things because which one of you, having a favorite animal that fell in the well on the Sabbath day, would not go right out and draw him up?” And since no one would answer him, and inasmuch as his host evidently approved of what was going on, Jesus stood up and spoke to all present: “My brethren, when you are bidden to a marriage feast, sit not down in the chief seat, lest, perchance, a more honored man than you has been invited, and the host will have to come to you and request that you give your place to this other and honored guest. In this event, with shame you will be required to take a lower place at the table. When you are bidden to a feast, it would be the part of wisdom, on arriving at the festive table, to seek for the lowest place and take your seat therein, so that, when the host looks over the guests, he may say to you: ‘My friend, why sit in the seat of the least? come up higher’; and thus will such a one have glory in the presence of his fellow guests. Forget not,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while he who truly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Therefore, when you entertain at dinner or give a supper, invite not always your friends, your brethren, your kinsmen, or your rich neighbors that they in return may bid you to their feasts, and thus will you be recompensed. When you give a banquet, sometimes bid the poor, the maimed, and the blind. In this way you shall be blessed in your heart, for you well know that the lame and the halt cannot repay you for your loving ministry.”

제 2 장. 큰 만찬의 비유

2. PARABLE OF THE GREAT SUPPER

바리새인의 아침 식탁에서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 율법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침묵을 깨고자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말하였다: “하느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이것은 당시에 보통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예수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였는데, 그의 친절한 주인까지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말했다:

“어떤 통치자가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으며, 만찬 시간이 되자 자기 하인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방금 농장을 샀기 때문에, 검사하러 가야하니, 나의 결례를 너그럽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다섯 쌍의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러 가야만 하니; 나의 결례를 너그럽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내와 방금 결혼하였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매우 화가 났고, 종들에게 돌이켜 말하였다. ‘내가 이 결혼 잔치를 준비시키고; 살찐 송아지들을 잡았으며, 손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었지만, 그들이 나의 초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각자 자기 땅과 자기 일터로 가버렸고, 나의 잔치에 초대하러 간 내 하인들에게 무례함을 보이니까 하겠다. 그러니 도시의 길거리와 골목들, 큰길은 물론 통하는 모든 길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 눈이 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데려 와서 결혼 잔치에 손님이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길거리와 시골에 지금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여 집이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떠나버렸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냉소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그 날 아침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내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 날 세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너는 밤에 신자들의 총회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였다.

다음 날 사도들은 모두, 큰 잔치에 관한 이 비유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는 서로 다른 이 해석들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그 비유를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다만 “각자 자신의 혼 속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167:2.1 (1835.1) As Jesus finished speaking at the breakfast table of the Pharisee, one of the lawyers present, desiring to relieve the silence, thoughtlessly said: “Blessed is he who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 that being a common saying of those days. And then Jesus spoke a parable, which even his friendly host was compelled to take to heart. He said:

167:2.2 (1835.2) “A certain ruler gave a great supper, and having bidden many guests, he dispatched his servants at suppertime to say to those who were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And they all with one accord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arm, and I must needs to go prove it; I pray you have me excuse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must go to receive them; I pray you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just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So the servants went back and reported this to their master.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heard this, he was very angry, and turning to his servants, he said: ‘I have made ready this marriage feast; the fatlings are killed, and all is in readiness for my guests, but they have spurned my invitation; they have gone every man after his lands and his merchandise, and they even show disrespect to my servants who bid them come to my feast. Go out quickly, therefore,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out into the highways and the byways, and bring hither the poor and the outcast, the blind and the lame, that the marriage feast may have guests.’ And the servants did as their lord commanded, and even then there was room for more guests. Then said the lord to his servants: ‘Go now out into the roads and the countryside and constrain those who are ther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I declare that none of those who were first bidden shall taste of my supper.’ And the servants did as their master commanded, and the house was filled.”

167:2.3 (1835.3) And when they heard these words, they departed; every man went to his own place. At least one of the sneering Pharisees present that morning comprehended the meaning of this parable, for he was baptized that day and made public confession of his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bner preached on this parable that night at the general council of believers.

167:2.4 (1835.4) The next day all of the apostles engaged in the philosophic exercise of endeavoring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is parable of the great supper. Though Jesus listened with interest to all of these differing interpretations, he steadfastly refused to offer them further help in understanding the parable. He would only say, “Let every man find out the meaning for himself and in his own soul.”

제 3 장. 허약한 영을 가진 여인

아브너는 주(主)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는데, 산헤드린의 명령으로 그의 가르침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예수가 회당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배봉사가 끝났을 때, 예수는 그 앞에 있는 몸이 몹시 굽고 그리고 풀이 죽은 표정의 나이가 든 여인을 내려다 보셨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려 왔으며, 모든 기쁨이 그녀의 일생 속에서 사라졌다. 예수가 단상(壇上)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그녀에게 가서 굽은-모습을 한 어깨에 손을 대시며 말하였다: “여인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너의 허약한 영(靈)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년 이상이나 몸을 굽히고 두려워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은 주(主)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즉시 똑바로 서게 되었다. 똑바로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한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이 여인의 병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원인이었으며, 그녀의 휘어진 모습도 그녀의 억압된 마음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셨다고 생각하였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의 회중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우호적이었지만, 회당의 우두머리 통치자는 비(非)우호적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예수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친 것에 대하여 회중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예수가 감히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에 분개하면서, 회중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사람에게는 모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몇새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들 일하는 날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라.”

비(非)우호적인 통치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단상에 돌아가서 말씀하였다: “왜 위선을 부리느냐? 너희는 모두 안식일에 마구간에서 소를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러한 봉사가 안식일에 허용된다면, 오늘이 안식일일지라도, 18년 동안 악에 묶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도 이러한 묶임에서 풀려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계속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그의 비난은 부끄럽게 되었으며, 회중들은 그녀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그녀와 함께 기쁨을 향유하였다.

이 안식일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인하여 회당 우두머리 통치자가 물러났고, 예수의 추종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3. THE WOMAN WITH THE SPIRIT OF INFIRMITY

167:3.1 (1835.5) Abner had arranged for the Master to teach in the synagogue on this Sabbath day, the first time Jesus had appeared in a synagogue since they had all been closed to his teachings by order of the Sanhedrin. At the conclusion of the service Jesus looked down before him upon an elderly woman who wore a downcast expression, and who was much bent in form. This woman had long been fear-ridden, and all joy had passed out of her life. As Jesus stepped down from the pulpit, he went over to her and, touching her bowed-over form on the shoulder, said: “Woman, if you would only believe, you could be wholly loosed from your spirit of infirmity.” And this woman, who had been bowed down and bound up by the depressions of fear for more than eighteen years, believed the words of the Master and by faith straightened up immediately. When this woman saw that she had been made straight, she lifted up her voice and glorified God.

167:3.2 (1836.1) Notwithstanding that this woman's affliction was wholly mental, her bowed-over form being the result of her depressed mind, the people thought that Jesus had healed a real physical disorder. Although the congregation of the synagogue at Philadelphia was friendly toward the teachings of Jesus, the chief ruler of the synagogue was an unfriendly Pharisee. And as he shared the opinion of the congregation that Jesus had healed a physical disorder, and being indignant because Jesus had presumed to do such a thing on the Sabbath, he stood up before the congregation and said: “Are there not six days in which men should do all their work? In these working days come, therefore, and be healed, but not on the Sabbath day.”

167:3.3 (1836.2) When the unfriendly ruler had thus spoken, Jesus returned to the speaker's platform and said: “Why play the part of hypocrites? Does not every one of you, on the Sabbath, loose his ox from the stall and lead him forth for watering? If such a service is permissible on the Sabbath day,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 has been bound down by evil these eighteen years, be loosed from this bondage and led forth to partake of the waters of liberty and life, even on this Sabbath day?” And as the woman continued to glorify God, his critic was put to shame, and the congregation rejoiced with her that she had been healed.

167:3.4 (1836.3) As a result of his public criticism of Jesus on this Sabbath the chief ruler of the synagogue was deposed, and a follower of Jesus was put in his place.

공포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허약한 영으로부터, 정신적인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공포의 속박으로부터 예수가 구해주시는 일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고통이 육체적인 병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일요일에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날 오후에 도시 남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아브너에게 세례를 받았다. 다음 날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윗의 메신저들이 도착하여,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급한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다.

제 4 장. 베다니에서 온 소식

2월 26일 일요일, 아주 늦은 밤에 베다니로부터 한 전령이 펠라델피아에 도착하였으며,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가 매우 아픕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이 소식은 저녁 회의가 끝나서 자기 위해 사도들을 떠나실 무렵에 예수께 전해졌다. 처음에 예수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자신의 몸 밖에, 건너편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와 교통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이상한 잠깐의 순간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신저를 쳐다보면서 사도들도 듣는 가운데 말하였다: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이 쓰일 것이라 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는 마르다, 마리아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를 매우 좋아하였다; 뜨거운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즉시 가서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다른 계획이 그의 병합된 마음에 떠올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영도자들이 왕국을 받아들이리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하였지만, 아직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계획이 이제 생각에 떠올랐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도 엄청난 외향적인 일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보여주기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대인들은 기적을-배푸는 해방자의 관념에 젖어 있었다. 물질적인 기적을 배풀거나 정치적인 힘을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일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지금은 이제까지 나타내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한 힘의 현시활동을 위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요구하였다.

유대인들은 죽은 그날로 시신을 묻는 것이 실천 관행이었는데;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그들은 단지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덤 안에 두어서 둘째 날 또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나오곤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유

167:3.5 (1836.4) Jesus frequently delivered such victims of fear from their spirit of infirmity, from their depression of mind, and from their bondage of fear. But the people thought that all such afflictions were either physical disorders or possession of evil spirits.

167:3.6 (1836.5) Jesus taught again in the synagogue on Sunday, and many were baptized by Abner at noon on that day in the river which flowed south of the city. On the morrow Jesus and the ten apostles would have started back to the Pella encampment but for the arrival of one of David's messengers, who brought an urgent message to Jesus from his friends at Bethany, near Jerusalem.

4. THE MESSAGE FROM BETHANY

167:4.1 (1836.6) Very late on Sunday night, February 26, a runner from Bethany arrived at Philadelphia, bringing a message from Martha and Mary which said, “Lord, he whom you love is very sick.” This message reached Jesus at the close of the evening conference and just as he was taking leave of the apostles for the night. At first Jesus made no reply. There occurred one of those strange interludes, a time when he appeared to be in communication with something outside of, and beyond, himself. And then, looking up, he addressed the messenger in the hearing of the apostles, saying: “This sickness is really not to the death. Doubt not that it may be used to glorify God and exalt the Son.”

167:4.2 (1837.1) Jesus was very fond of Martha, Mary, and their brother, Lazarus; he loved them with a fervent affection. His first and human thought was to go to their assistance at once, but another idea came into his combined mind. He had almost given up hope that the Jewish leaders at Jerusalem would ever accept the kingdom, but he still loved his people, and there now occurred to him a plan whereby the scribes and Pharisees of Jerusalem might have one more chance to accept his teachings; and he decided, his Father willing, to make this last appeal to Jerusalem the most profound and stupendous outward working of his entire earth career. The Jews clung to the idea of a wonder-working deliverer. And though he refused to stoop to the performance of material wonders or to the enactment of temporal exhibitions of political power, he did now ask the Father's consent for the manifestation of his hitherto unexhibited power over life and death.

167:4.3 (1837.2) The Jews were in the habit of burying their dead on the day of their demise; this was a necessary practice in such a warm climate. It often happened that they put in the tomb one who was merely comatose, so that on the second or

대인들은 영이나 혼이 육신 근처에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떠돌다가 사흘이 지나면 머물지 않는다는 것; 나홀이 되는 날부터 부패가 한창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그 무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베다니로 출발할 준비를 하기 전에 이틀을 더 필라델피아에 머무르신, 그러한 이유들이었다.

따라서, 수요일 아침이 되자 예수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였다. “지금 즉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자.” 이러한 주(主)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물려가서 서로 상의를 하였다.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수로 하여금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데에 그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하나같이 와서 말하였다. 야고보가 말했다; “주(主)여,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영도자들은 당신을 죽이려 하였고, 사람들은 당신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는 것은 우리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렇지만, 안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간다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밤에 걸어간다면, 빛이 없으므로 자칫 넘어지기 쉬운 것이다. 나의 날이 계속되는 한에는, 유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들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적을 행하고자 한다; 그들 자신들의 조건—아버지의 힘과 아들의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시활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의 조건—에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다. 게다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에 빠져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깨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사도들중의 하나가 말했다; “주(主)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지만, 예수는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인데, 사도들이 납득하지 못하자, 분명하게 다시 말씀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하지만 설사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너희는 이것을 새로운 이유로 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없었던 것이 기쁘다; 너희가 목격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힘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는 것을 만류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도들은 함께 가는 것조차도 질색하며 싫어할 때, 도마가 동료들에게 제안하여 말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主)께 말씀드렸지만, 주(主)는 베다니로 가시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끝이 왔다는 데에 만족한다; 그들이 분명히 주(主)를 죽이겠지만, 그것이 주(主)의 선택이라면, 용감한 사

even the third day, such a one would come forth from the tomb. But it was the belief of the Jews that, while the spirit or soul might linger near the body for two or three days, it never tarried after the third day; that decay was well advanced by the fourth day, and that no one ever returned from the tomb after the lapse of such a period. And it was for these reasons that Jesus tarried yet two full days in Philadelphia before he made ready to start for Bethany.

167:4.4 (1837.3) Accordingly, early on Wednesday morning he said to his apostles: “Let us prepare at once to go into Judea again.” And when the apostles heard their Master say this, they drew off by themselves for a time to take counsel of one another. James assumed the direction of the conference, and they all agreed that it was only folly to allow Jesus to go again into Judea, and they came back as one man and so informed him. Said James: “Master, you were in Jerusalem a few weeks back, and the leaders sought your death, while the people were minded to stone you. At that time you gave these men their chance to receive the truth, and we will not permit you to go again into Judea.”

167:4.5 (1837.4) Then said Jesus: “But do you not understand that there are twelve hours of the day in which work may safely be done? If a man walks in the day, he does not stumble inasmuch as he has light. If a man walks in the night, he is liable to stumble since he is without light. As long as my day lasts, I fear not to enter Judea. I would do one more mighty work for these Jews; I would give them one more chance to believe, even on their own terms — conditions of outward glory and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the power of the Father and the love of the Son. Besides, do you not realize that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and I would go to awake him out of this sleep!”

167:4.6 (1837.5) Then said one of the apostles: “Master, if Lazarus has fallen asleep, then will he the more surely recover.” It was the custom of the Jews at that time to speak of death as a form of sleep, but as the apostles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meant that Lazarus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he now said plainly: “Lazarus is dead. And I am glad for your sakes, even if the others are not thereby saved, that I was not there, to the end that you shall now have new cause to believe in me; and by that which you will witness, you should all be strengthened in preparation for that day when I shall take leave of you and go to the Father.”

167:4.7 (1838.1) When they could not persuade him to refrain from going into Judea, and when some of the apostles were loath even to accompany him, Thomas addressed his fellows, saying: “We have told the Master our fears, but he is determined to go to Bethany. I am satisfied it means the end; they will surely kill him, but if that is the Master’s

람답게 행동하자; 우리도 주(主)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같이 가자.” 항상 그러하였듯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서, 도마는 항상 열 두 사도들의 기둥이었다.

제 5 장. 베다니로 가는 길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는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적들이 일행을 이루며 예수를 따랐다. 수요일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는 사도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이 교훈의 끝에 가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세금 징수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였다. 예수는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아-정의로움에서의 노력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살 수 없으며, 대중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였더라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부족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너희의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에베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너희의 혼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하려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으로서, 그것이 잘 예시된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제가 여느 사람들, 착취하는 자, 배우지 못한 자, 부당한 자, 간음한 자, 심지어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 합니다;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눈을 하늘을 향해 그렇게 많이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부분을 치며 말하였다, ‘하느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바리새인 보다 세리가 하느님의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으니, 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리고에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한때 그들의 동료들이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토론에 주(主)를 끌어들이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는 이혼에 관한 그들의 율법과 충돌하도록 유도하는 그들의 노력을 숨겨 있게 피하였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실 예로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이혼 실천 관행은, 모세의 이들 이혼조항 규정에 대한 바리새인 해석의 불명예스러운 느슨함과 대조되어, 유대 율법의 더욱 좋은 결혼 법을 대조하는데 사용되었다. 바리새인은 가장 낮은 기준으로서 자신을 심판하였으며, 세리는 가장 높은 이상으로서 자신을 칭찬하였다. 바리새인에게, 헌신은 자아-정의로운 비(非)활동을 유도하는 수단이었고, 거짓된 영적 안전의 보장이었다; 세리에게 헌신은, 회개와 고백 그리고, 신앙에 의하여, 자비로운 용서를 받아들일 그 필요성의 실현에 자신의 영혼을 분발시켜 일어나게 하는 수

choice, then let us acquit ourselves like men of courage; let us go also that we may die with him.” And it was ever so; in matters requiring deliberate and sustained courage, Thomas was always the mainstay of the twelve apostles.

5. ON THE WAY TO BETHANY

167:5.1 (1838.2) On the way to Judea Jesus was followed by a company of almost fifty of his friends and enemies. At their noon lunchtime, on Wednesday, he talked to his apostles and this group of followers on the “Terms of Salvation,” and at the end of this lesson told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he publican (a tax collector). Said Jesus: “You see, then, that the Father gives salvation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is salvation is a free gift to all who have the faith to receive sonship in the divine family. There is nothing man can do to earn this salvation. Works of self-righteousness cannot buy the favor of God, and much praying in public will not atone for lack of living faith in the heart. Men you may deceive by your outward service, but God looks into your souls. What I am telling you is well illustrated by two men who went into the temple to pray, the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publican. 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o himself: ‘O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the rest of men, extortioners, unlearned,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publican. I fast twice a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get.’ But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so much as lift his eyes to heaven but smote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I tell you that the publican went home with God’s approval rather than the Pharisee, for every one who exalts himself shall be humbled, but he who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167:5.2 (1838.3) That night, in Jericho, the unfriendly Pharisees sought to entrap the Master by inducing him to discuss marriage and divorce, as did their fellows one time in Galilee, but Jesus artfully avoided their efforts to bring him into conflict with their laws concerning divorce. As the publican and the Pharisee illustrated good and bad religion, their divorce practices served to contrast the better marriage laws of the Jewish code with the disgraceful laxity of the Pharisaic interpretations of these Mosaic divorce statutes. The Pharisee judged himself by the lowest standard; the publican squared himself by the highest ideal. Devotion, to the Pharisee, was a means of inducing self-righteous inactivity and the assurance of false spiritual security; devotion, to the publican, was a means of stirring up his soul to the realization of the need for repentance, confession, and the acceptance, by faith, of

단이었다. 바리새인은 공의를 구하였지만; 세리는 자비를 구하였다. 우주의 법칙은 이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예수는 이혼에 관하여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는 것은 거절하였지만, 결혼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이상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는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칭찬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방종하며 부당한 이혼 실천 관행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는데, 그들은 당시에 남자가 아주 하찮은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음식 솜씨가 없는 것,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또는 그가 보다 예쁜 여인과 정을 통하게 되었다는 이유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것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가지각색의 이런 쉬운 이혼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어떤 의견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결혼 관계의 이러한 부끄럽고 경멸스러운 행동을 아주 몹시 비난하였으며, 그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 불공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주(主)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어떤 이혼 실천 관행도 허용한 적이 결코 없으시며;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에 관계된 가르침들에만 찬성하였다.

비록 결혼과 이혼을 다스리는 새로운 명령을 예수가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법과 보다 높은 가르침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그들의 실천 관행이 이들 사회노선과 더불어 개선되도록 하려는 자신의 노력에서 변함없이 기록된 성서에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높고도 이상적인 개념을 지지하면서, 예수는 그들의 기록된 율법이나 무척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혼 특권이 대표하는 사회실천 관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질문하는 자들과의 충돌을 숨쳐 있게 피하였다.

과학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주(主)가 확실한 언급을 피하는 것을 사도들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그의 이 땅에서의 임무가 오로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들 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하였다.

예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 그 날 저녁 늦게 사도들이 은밀히 찾아와 많은 질문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해결되었다. 이 토론을 마치면서 예수는 말씀했다; “결혼은 명예로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갈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땅에서의 임무를 홀로 추구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일에서는 그 어떤 점에서도 결코 관계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만, 바로 그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창조를 지도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들이 자녀들을 받아들이

merciful forgiveness. The Pharisee sought justice; the publican sought mercy. The law of the universe is: Ask and you shall receive; seek and you shall find.

167:5.3 (1838.4) Though Jesus refused to be drawn into a controversy with the Pharisees concerning divorce, he did proclaim a positive teaching of the highest ideals regarding marriage. He exalted marriage as the most ideal and highest of all human relationships. Likewise, he intimated strong disapproval of the lax and unfair divorce practices of the Jerusalem Jews, who at that time permitted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the most trifling of reasons, such as being a poor cook, a faulty housekeeper, or for no better reason than that he had become enamored of a better-looking woman.

167:5.4 (1839.1) The Pharisees had even gone so far as to teach that divorce of this easy variety was a special dispensation granted the Jewish people, particularly the Pharisees. And so, while Jesus refused to make pronouncements dealing with marriage and divorce, he did most bitterly denounce these shameful floutings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and pointed out their injustice to women and children. He never sanctioned any divorce practice which gave man any advantage over woman; the Master countenanced only those teachings which accorded women equality with men.

167:5.5 (1839.2) Although Jesus did not offer new mandates governing marriage and divorce, he did urge the Jews to live up to their own laws and higher teachings. He constantly appealed to the written Scriptures in his effort to improve their practices along these social lines. While thus upholding the high and ideal concepts of marriage, Jesus skillfully avoided clashing with his questioners about the social practices represented by either their written laws or their much-cherished divorce privileges.

167:5.6 (1839.3)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 apostles to understand the Master's reluctance to make positive pronouncements relative to scientific,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They did not fully realize that his earth mission was exclusively concerned with revelations of spiritual and religious truths.

167:5.7 (1839.4) After Jesus had talked about marriage and divorce, later on that evening his apostles privately asked many additional questions, and his answers to these inquiries relieved their minds of many misconceptions. At the conclusion of this conference Jesus said: “Marriage is honorable and is to be desired by all men. The fact that the Son of Man pursues his earth mission alone is in no way a reflection on the desirability of marriage. That I should so work is the Father's will, but this same Father has directed the creation of male and female, and it is the divine will that men and

이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꾸미는 일에서, 이들 부모들이 하늘과 땅의 조물주와 협동자가 되는 그러한 창조하는 일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봉사과 필연적인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신성한 뜻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어머니를 떠나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연관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이혼에 관한 많은 오해를 씻어주었다; 동시에 사회적 연합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증강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가정을 그들이 더욱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제 6 장.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심

그 날 저녁, 결혼에 관계된 예수의 메시지와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져서,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사도들이 떠날 준비를 하기 훨씬 전, 아침 식사시간도 아직 이르기 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팔에 안거나 혹은 손을 잡아 이끌며 예수 숙소로 찾아와서 그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사도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모여든 어머니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이 여인들은 주(主)가 아이들에게 직접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큰 소리로 이 어머니들을 꾸짖자, 예수는 소란스런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서 화를 내듯이 그들을 책망하였으며, 말씀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하고;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니 그들을 막지 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린이처럼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자라간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친 주(主)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이시며,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천상의 맨션들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였으며, 상승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 날 이들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지켜보고 있는 네바돈의 지능존재들이 우주의 창조자와 함께 노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성스러운 것은 종종 그렇게 평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여인들의 지위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만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공들여 가르쳤던 것을 그토록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women should find their highest service and consequent joy in the establishment of homes for the reception and training of children, in the creation of whom these parents become copartners with the Makers of heaven and earth. And for this caus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shall cleave to his wife, and they two shall become as one.”

167:5.8 (1839.5) And in this way Jesus relieved the minds of the apostles of many worries about marriage and cleared up many misunderstandings regarding divorce; at the same time he did much to exalt their ideals of social union and to augment their respect for women and children and for the home.

6. BLESSING THE LITTLE CHILDREN

167:6.1 (1839.6) That evening Jesus' message regarding marriage and the blessedness of children spread all over Jericho, so that the next morning, long before Jesus and the apostles prepared to leave, even before breakfast time, scores of mothers came to where Jesus lodged, bringing their children in their arms and leading them by their hands, and desired that he bless the little ones. When the apostles went out to view this assemblage of mothers with their children, they endeavored to send them away, but these women refused to depart until the Master laid his hands on their children and blessed them. And when the apostles loudly rebuked these mothers, Jesus, hearing the tumult, came out and indignantly reproved them, saying: "Suffer little children to come to me;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heaven. Verily, verily, I say to you, whosoever receives not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hardly enter therein to grow up to the full stature of spiritual manhood."

167:6.2 (1840.1) And when the Master had spoken to his apostles, he received all of the children, laying his hands on them, while he spoke words of courage and hope to their mothers.

167:6.3 (1839.8) Jesus often talked to his apostles about the celestial mansions and taught that the advancing children of God must there grow up spiritually as children grow up physically on this world. And so does the sacred oftentimes appear to be the common, as on this day these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ttle realized that the onlooking intelligences of Nebadon beheld the children of Jericho playing with the Creator of a universe.

167:6.4 (1839.9) Woman's status in Palestine was much improved by Jesus' teaching; and so it would have been throughout the world if his followers had not departed so far from that which he painstakingly taught them.

아이들을 일찍이 신성한 경배의 습관에 종교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연결하여, 예수가 경배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끄는 하나의 영향으로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아름다움에 대한 커다란 가치를 사도들에게 강조한 곳도, 역시 여리고에서 이었다. 주(主)는 교훈과 모범에 의해, 창조의 자연적 주변 환경 가운데에서 창조자에게 경배하는 것의 가치 있음을 가르쳤다. 그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연 세상의 낮은 창조계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는 창조자 아들들의 반짝이는 별들의 영역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을 두루 통하여 아버지를 깊이 사색하는 기쁨을 향유했다.

사람은 자연의 임시오두막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느님과 영적 교제에 대한 지능적 접근과 관련하여 인간의 감정이 최고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단순함이 있으면서도 예술적인 장식으로 꾸민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거룩함은 참된 경배를 힘차게 그리고 효력 있게 돕는다. 그러나 영적 교제가 단순한 거창한 치장으로 그리고 사람의 정교하고 허세부리는 예술로 과도하게 장식한 것에 의해서 촉진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美)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빠져있고, 명량한 기분과 영감을 주는 성스러움이 도무지 비어있는 차갑고 매마른 방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중경배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이는 바깥의 자연에서 처음으로 경배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가 매일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최소한 물질적으로 매혹적이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 종교적 집회가 열리는 공공 건물로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

제 7 장.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가면서 언덕을 오르는 동안, 나다니엘은 계속 예수 옆에서 걸어갔으며, 하늘의 왕국과 관련하여 아이들 문제를 토의하다가 결국에는 천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다니엘은 마침내 주(主)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며,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을 믿지 않으니, 하늘에서의 사명활동자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무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천사 무리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별도의 계층이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물질적인 계층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우주 지능의 독특한 무리로서 기능한다. 천사들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창조체의 무리가 아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모론시아 세계를 통하여 이미 진보되어진 필사 사람의 영(靈)화된 영들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재생산하지도 못한다. 천사 무리들

167:6.5 (1839.10) It was also at Jericho,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f the early religious training of children in habits of divine worship, that Jesus impressed upon his apostles the great value of beauty as an influence leading to the urge to worship, especially with children. The Master by precept and example taught the value of worshiping the Creator in the midst of the natural surroundings of creation. He preferred to commune with the heavenly Father amidst the trees and among the lowly creatures of the natural world. He rejoiced to contemplate the Father through the inspiring spectacle of the starry realms of the Creator Sons.

167:6.6 (1839.11) When it is not possible to worship God in the tabernacles of nature, men should do their best to provide houses of beauty, sanctuaries of appealing simplicity and artistic embellishment, so that the highest of human emotions may be aroused in association with the intellectual approach to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Truth, beauty, and holiness are powerful and effective aids to true worship. But spirit communion is not promoted by mere massive ornateness and overmuch embellishment with man's elaborate and ostentatious art. Beauty is most religious when it is most simple and naturelike. How unfortunate that little children should have their first introduction to concepts of public worship in cold and barren rooms so devoid of the beauty appeal and so empty of all suggestion of good cheer and inspiring holiness! The child should be introduced to worship in nature's outdoors and later accompany his parents to public houses of religious assembly which are at least as materially attractive and artistically beautiful as the home in which he is daily domiciled.

7. THE TALK ABOUT ANGELS

167:7.1 (1840.6) As they journeyed up the hills from Jericho to Bethany, Nathaniel walked most of the way by the side of Jesus, and their discussion of children in relation to the kingdom of heaven led indirectly to the consideration of the ministry of angels. Nathaniel finally asked the Master this question: "Seeing that the high priest is a Sadducee, and since the Sadducees do not believe in angels, what shall we teach the people regarding the heavenly ministers?" Then, among other things, Jesus said:

167:7.2 (1841.1) "The angelic hosts are a separate order of created beings; they are entirely different from the material order of mortal creatures, and they function as a distinct group of universe intelligences. Angels are not of that group of creatures called 'the Sons of God' in the Scriptures; neither are they the glorified spirits of mortal men who have gone on to progress through

은 인간 종족과 오직 영적인 친족관계를 가질 뿐이다. 사람은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로 진보해 가면서, 한 때 천사들과 비슷한 상태를 거쳐 가는 하지만, 필사 사람은 결코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과는 달리,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천사들은 그들 중의 일부가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천사에서 영적 하인이며, 모든 것에-지혜롭지도 않고, 모든 일에-힘 넘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든 천사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다.

“너희가 만일 신성하게 된 영적 눈을 갖게 된다면,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 번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느 세계가 다른 세계들과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역할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면서 너희 가슴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자질하고, 육신적인 행위들을 보고하는, 영 세계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그 자신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는 한, 그러한 봉사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우주의 다른 먼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의 한 부분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관리체제와 아들들의 우주 안에서 기능하면서, 인간 종족의 봉사에 배정되어 있다. 내가 이들 중의 많은 세라핌천사들이 사명활동 영들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상징적인 언어나 시적인 선율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겪는 너희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것은 진실이다.

이 천사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혼이 죄를 떠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의 세라핌천사의 즐거움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기쁨이 천사들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했으니, 그로써 마찬가지로 영적 행복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필사 사람의 신성한 진보와 관련된, 더 높은 계층의 천사의 존재들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그의 혼을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호송하는 수단에도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다. 천사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거처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있는 미지의 불확정적 기간 동안 사람의 혼을 안전하게 하늘의 힘으로 인도한다.”

천사들의 사명활동에 관하여 나다니엘과 더 이야기하려고 하였지만, 마르다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멈추었으며, 그녀는 주(主)가 베다니 가까이

the mansions on high. Angels are a direct creation, and they do not reproduce themselves. The angelic hosts have only a spiritual kinship with the human race. As man progresses in the journey to the Father in Paradise, he does traverse a state of being at one time analogous to the state of the angels, but mortal man never becomes an angel.

167:7.3 (1841.2) “The angels never die, as man does.

The angels are immortal unless, perchance, they become involved in sin as did some of them with the deceptions of Lucifer. The angels are the spirit servants in heaven, and they are neither all-wise nor all-powerful. But all of the loyal angels are truly pure and holy.

167:7.4 (1841.3) “And do you not remember that I said

to you once before that, if you had your spiritual eyes anointed, you would then see the heavens opened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It is by the ministry of the angels that one world may be kept in touch with other worlds, for have I not repeatedly told you that I have other sheep not of this fold? And these angels are not the spies of the spirit world who watch upon you and then go forth to tell the Father the thoughts of your heart and to report on the deeds of the flesh. The Father has no need of such service inasmuch as his own spirit lives within you. But these angelic spirits do function to keep one part of the heavenly creation informed concerning the doings of other and remote parts of the universe. And many of the angels, while functioning in the government of the Father and the universes of the Sons, are assigned to the service of the human races. When I taught you that many of these seraphim are ministering spirits, I spoke not in figurative language nor in poetic strains. And all this is true, regardless of your difficulty in comprehending such matters.

167:7.5 (1841.4) “Many of these angels are engaged in

the work of saving men, for have I not told you of the seraphic joy when one soul elects to forsake sin and begin the search for God? I did even tell you of the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ereby indicating the existence of other and higher orders of celestial beings who are likewise concerned in the spiritual welfare and with the divine progress of mortal man.

167:7.6 (1841.5) “Also are these angels very much

concerned with the means whereby man's spirit is released from the tabernacles of the flesh and his soul escorted to the mansions in heaven. Angels are the sure and heavenly guides of the soul of man during that uncharted and indefinite period of time which intervenes between the death of the flesh and the new life in the spirit abodes.”

167:7.7 (1841.6) And he would have spoken further

with Nathaniel regarding the ministry of angels, but he was interrupted by the approach of Martha, who

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동쪽으로 언덕을 오르
시는 그를 보았던 친구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속히 서둘러서 그에게 인사하러 온 것이
다.

had been informed that the Master was drawing
near to Bethany by friends who had observed him
ascending the hills to the east. And she now
hastened to greet him.

제 168 편 나사로의 부활

⇨ 167

유랜시아 책

16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8 편 나사로의 부활

색션

소개

제 1 장. 나사로의 무덤에서

제 2 장. 나사로의 부활

제 3 장. 산헤드린 회의

제 4 장. 기도에 대한 응답

제 5 장.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PAPER 168

THE RESURRECTION OF LAZARUS

SECTIONS

Introduction

1. At the Tomb of Lazarus

2. The Resurrection of Lazarus

3. Meeting of the Sanhedrin

4. The Answer to Prayer

5. What Became of Lazarus

소개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가까운 언덕 꼭대기에 오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갈 때는 정오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다. 그녀의 남동생 나사로는 나흘 전에 이미 죽었으며, 정원 맨 구석에 있는 그들의 개인 묘지에 일요일 오후 늦게 묻혔었다.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은 것은 목요일, 오늘 아침이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예수께 전하였을 때, 그들은 주(主)가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예수가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떠나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우러 오시리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하였지만, 힘 있는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가 즉시 나을 것이라는 그의 치유 힘을 자신하였었다. 그리고 메신저가 필라델피아를 향하여 베다니를 떠난 후 몇 시간도 못 되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주(主)가 그의 병을 너무 늦게까지, 그가 몇 시간 전에 이미 죽었을 때까지도 모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화요일 오후에 베다니로 돌아온 전령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물론 모든 믿는 친구들도 매우 당황하였다. 그 메신저가 예수가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

INTRODUCTION

168:0.1 (1842.1) IT WAS shortly after noon when Martha started out to meet Jesus as he came over the brow of the hill near Bethany. Her brother, Lazarus, had been dead four days and had been laid away in their private tomb at the far end of the garden late on Sunday afternoon. The stone at the entrance of the tomb had been rolled in place on the morning of this day, Thursday.

168:0.2 (1842.2) When Martha and Mary sent word to Jesus concerning Lazarus's illness, they were confident the Master would do something about it. They knew that their brother was desperately sick, and though they hardly dared hope that Jesus would leave his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to come to their assistance, they had such confidence in his power to heal disease that they thought he would just speak the curative words, and Lazarus would immediately be made whole. And when Lazarus died a few hours after the messenger left Bethany for Philadelphia, they reasoned that it was because the Master did not learn of their brother's illness until it was too late, until he had already been dead for several hours.

168:0.3 (1842.3) But they, with all of their believing friends, were greatly puzzled by the message which the runner brought back Tuesday forenoon when he reached Bethany. The messenger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들에게 왜 아무 말씀도 없었는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다른 조연도 왜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슬픔에 잠긴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가까운 마을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친구들이 왔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부유하며 명예를 받는 유대인의 자녀들이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를 오랫동안 열렬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우 존중을 받았다. 그들은 광대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과수원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토지 안에 개인 무덤을 잘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立證)된다. 그들의 부모들은 이미 이 무덤에 묻혀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포기하고 비탄(悲嘆)에 빠져 있었지만, 마르다는 돌이 무덤 입구에 굴려져서 입구가 인봉(印封)되던 그 아침까지도 예수가 오시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이웃 아이에게 베다니 동쪽 언덕 꼭대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켜보라고 당부하였다; 예수와 그의 친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전한 것은 이 아이였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主)여,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형제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많은 근심들이 마르다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주(主)의 행위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예수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녀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였다. “마르다야, 오직 신앙만 가지면,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 당신이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리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실로, 나를 믿으며 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실제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主)께 대답했다; “예, 저는 당신이 해방자이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까지도 오래 전부터 믿어왔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에 대하여 물어보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곧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에게 작은 소리로, “주(主)가 여기 오셨고 너를 찾으신다.”고 말하였다.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곧 일어나 예수를 만나려고 서둘러서 나갔으며, 예수는 마르다를 만났던,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대로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insisted that he heard Jesus say, “...this sickness is really not to the death.” Neither could they understand why he sent no word to them nor otherwise proffered assistance.

168:0.4 (1842.4) Many friends from near-by hamlets and others from Jerusalem came over to comfort the sorrow-stricken sisters. Lazarus and his sisters were the children of a well-to-do and honorable Jew, one who had been the leading resident of the little village of Bethany. And notwithstanding that all three had long been ardent followers of Jesus, they were highly respected by all who knew them. They had inherited extensive vineyards and olive orchards in this vicinity, and that they were wealthy was further attested by the fact that they could afford a private burial tomb on their own premises. Both of their parents had already been laid away in this tomb.

168:0.5 (1842.5) Mary had given up the thought of Jesus' coming and was abandoned to her grief, but Martha clung to the hope that Jesus would come, even up to the time on that very morning when they rolled the stone in front of the tomb and sealed the entrance. Even then she instructed a neighbor lad to keep watch down the Jericho road from the brow of the hill to the east of Bethany; and it was this lad who brought tidings to Martha that Jesus and his friends were approaching.

168:0.6 (1842.6) When Martha met Jesus, she fell at his feet, exclaiming, “Master,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Many fears were passing through Martha's mind, but she gave expression to no doubt, nor did she venture to criticize or question the Master's conduct as related to Lazarus's death. When she had spoken, Jesus reached down and, lifting her upon her feet, said, “Only have faith, Martha, and your brother shall rise again.” Then answered Martha: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of the last day; and even now I believe that whatever you shall ask of God, our Father will give you.”

168:0.7 (1843.1) Then said Jesus, looking straight into the eyes of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dies, yet shall he live. In truth, whos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really die. Martha, do you believe this?” And Martha answered the Master: “Yes, I have long believed that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the living God, even he who should come to this world.”

168:0.8 (1843.2) Jesus having inquired for Mary, Martha went at once into the house and, whispering to her sister, said, “The Master is here and has asked for you.” And when Mary heard this, she rose up quickly and hastened out to meet Jesus, who still tarried at the place, some distance from the house, where Martha had first met him.

애를 쓰다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하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지의 지독한 적들이었다. 이 때문에 마르다는 혼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이며, 마리아에게 주(主)가 찾으신다고 은밀하게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의 적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쾌한 사건도 피하고자 하였다.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나가는 동안 마르다는 일부러 집에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가서 뜻밖에도 주(主)의 현존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께로 안내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혼이 연민으로 감동되었다.

애곡하던 자들은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는 것을 보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主)와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강한 신앙을 지키고 신성한 뜻에 완벽하게 복종하라는 간곡한 훈계를 받아들이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수지 인간 마음은, 나사로 그리고 상을 당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믿지 아니하며 살인할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현시하는 허식적인 애정 표현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과 모멸감 사이의 투쟁으로 인하여 크게 흔들렸다. 몇몇 거짓된 친구들이 나사로를 위해 외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애곡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는 심히 분개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거짓된 슬픔은 가슴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비통한 증오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애곡을 하였는데, 그 가정의 실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제 1 장.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는 잠시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객(弔客)들에게 물었다. “그를 어디에다 묻었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主)는 슬픔에 가득 찬 두 자매들을 따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을 따라오던 우호적인 유대인들이 그의 눈물을 보고, 그들 중에 하나가 말하였다. “주(主)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보라. 눈 먼자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들은 이윽고, 작은 자연 동굴로 만들어진 가족 묘 앞에 도착하였으며, 그 동굴은 정원의 맨 끝에 약 30 피트 가량 솟아 있는 바위 언덕 속에 있었다.

The friends who were with Mary, seeking to comfort her, when they saw that she rose up quickly and went out, followed her, supposing that she was going to the tomb to weep.

168:0.9 (1843.3) Many of those present were Jesus' bitter enemies. That is why Martha had come out to meet him alone, and also why she went in secretly to inform Mary that he had asked for her. Martha, while craving to see Jesus, desired to avoid any possible unpleasantness which might be caused by his coming suddenly into the midst of a large group of his Jerusalem enemies. It had been Martha's intention to remain in the house with their friends while Mary went to greet Jesus, but in this she failed, for they all followed Mary and so found themselves unexpectedly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168:0.10 (1843.4) Martha led Mary to Jesus, and when she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exclaiming, “If you ha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And when Jesus saw how they all grieved over the death of Lazarus, his soul was moved with compassion.

168:0.11 (1843.5) When the mourners saw that Mary had gone to greet Jesus, they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while both Martha and Mary talked with the Master and received further words of comfort and exhortation to maintain strong faith in the Father and complete resignation to the divine will.

168:0.12 (1843.6) The human mind of Jesus was mightily moved by the contention between his love for Lazarus and the bereaved sisters and his disdain and contempt for the outward show of affection manifested by some of these unbelieving and murderously intentioned Jews. Jesus indignantly resented the show of forced and outward mourning for Lazarus by some of these professed friends inasmuch as such false sorrow was associated in their hearts with so much bitter enmity toward himself. Some of these Jews, however, were sincere in their mourning, for they were real friends of the family.

1. AT THE TOMB OF LAZARUS

168:1.1 (1843.7) After Jesus had spent a few moments in comforting Martha and Mary, apart from the mourners, he asked them, “Where have you laid him?” Then Martha said, “Come and see.” And as the Master followed on in silence with the two sorrowing sisters, he wept. When the friendly Jews who followed after them saw his tears, one of them said: “Behold how he loved him.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By this time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family tomb, a small natural cave, or declivity, in the ledge of rock which rose up some thirty feet at the far end of the garden plot.

예수가 왜 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마음속에 기록된 대로, 인간 감정과 신성한 생각의 병합에 대한 기록을 참조해보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감정적 현시활동의 실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때 그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아래와 같은 많은 감정과 생각들 때문에 예수가 우셨을 것이라고 믿기로 하였다:

1.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정어린 그리고 슬픔에 찬 동정심을 느꼈다; 자신들의 오라비를 잃은 이들 자매에게 실제로 깊은 인간 애정을 가졌다.

2. 그는 많은 조객들이 더러는 진심으로 더러는 가장하는 군중으로 현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는 항상 애통함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는 그 자매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믿는 것을 아셨다. 이러한 모순되는 감정들이,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왜 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그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정말로 망설였다. 그의 자매들은 형제가 실제로 필요하였지만, 예수는 그의 친구를 다시 불러내어 지독한 박해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슬퍼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의 신성한 힘의 실증 중에서 가장 큰 것의 결과로 그 박해가 임할 것을 그가 잘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흥미롭고 유익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 이야기가 비록 인간의 관련사에서 결보기에 자연적이고도 정상적인 사건으로 펼쳐지지만,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조명을 가지고 있다. 메신저가 일요일에 예수께 가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는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직접 베다니에 가서서는 자매들에게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고 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주(主)께서 이 생명의 방식 이후에, 인간마음의 제한된 지식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고는 있지만, 또 그러했다 할지라도, 우주의 기록들은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 생각 조절자에 대한 행성에서의 무기한 억류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이 명령은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정확히 15분전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의 신성한 마음이 나사로가 미처 죽기 전에 죽음으로부터 그를 자신이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에 기록된 것들뿐이다.

예수의 적들 다수는 애정에 대한 그의 현시활동에 비웃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했다면, 베다니에 오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었단 말인가?

168:1.2 (1844.1) It is difficult to explain to human minds just why Jesus wept. While we have access to the registration of the combined human emotions and divine thoughts, as of record in the mind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we are not altogether certain about the real cause of these emotional manifestations. We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Jesus wept because of a number of thoughts and feelings which were going through his mind at this time, such as:

168:1.3 (1844.2) 1. He felt a genuine and sorrowful sympathy for Martha and Mary; he had a real and deep human affection for these sisters who had lost their brother.

168:1.4 (1844.3) 2. He was perturbed in his mind by the presence of the crowd of mourners, some sincere and some merely pretenders. He always resented these outward exhibitions of mourning. He knew the sisters loved their brother and had faith in the survival of believers. These conflicting emotions may possibly explain why he groaned as they came near the tomb.

168:1.5 (1844.4) 3. He truly hesitated about bringing Lazarus back to the mortal life. His sisters really needed him, but Jesus regretted having to summon his friend back to experience the bitter persecution which he well knew Lazarus would have to endure as a result of being the subject of the greatest of all demonstrations of the divine power of the Son of Man.

168:1.6 (1844.5) And now we may relate an interesting and instructive fact: Although this narrative unfolds as an apparently natural and normal event in human affairs, it has some very interesting side lights. While the messenger went to Jesus on Sunday, telling him of Lazarus's illness, and while Jesus sent word that it was “not to the death,” at the same time he went in person up to Bethany and even asked the sisters, “Where have you laid him?” Even though all of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Master was proceeding after the manner of this life and in accordance with the limited knowledge of the human mind, nevertheless, the records of the universe reveal that Jesus' Personalized Adjuster issued orders for the indefinite detention of Lazarus's Thought Adjuster on the planet subsequent to Lazarus's death, and that this order was made of record just fifteen minutes before Lazarus breathed his last.

168:1.7 (1844.6) Did the divine mind of Jesus know, even before Lazarus died, that he would raise him from the dead? We do not know. We know only what we are herewith placing on record.

168:1.8 (1844.7) Many of Jesus' enemies were inclined to sneer at his manifestations of affection, and they said among themselves: “If he thought so much of this man, why did he tarry so long before coming to Bethany? If he is what they claim, why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를 왜 구해주지 않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주지도 못한다면, 갈릴리의 낯선 자들을 고쳐준 선함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의 가르침들과 업적들을 빈정거리고 비웃었다.

그리하여, 이 날, 목요일 오후 두 시 반이 지났을 무렵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네바돈의 미가엘이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연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동안에 보여주신 신성한 힘들 중에서 가장 큰 현시활동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경우는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 있는 적은 무리들은 모든 종류의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의 지도에 의해, 무엇이 일어날지 가슴을 설레면서, 사랑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가브리엘의 지도에 따라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바로 옆에 현존해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가 “돌을 치워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여 있는 천상의 집단들은 나사로를 그의 필사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키는 드라마를 상연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한 부활 방식은 필사 창조체들이 모몬시아 형태로 부활되는 일반적인 기법보다 훨씬 초월적인 실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천상의 개인성들과 훨씬 더 큰 우주시설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서 치우라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모순되는 여러 감정들로 가득하였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기를 희망하였지만, 마르다는 어느 정도 동생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반면, 나사로가 혹시라도 나설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하였다. 마르다는 말했다; “돌을 꼭 치워야만 됩니까? 형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므로, 몸이 이미 썩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主)가 그 돌을 왜 치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예수가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녀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들이 돌을 굴러 치우기를 주저하자, 예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애당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도착한 후에도, 너희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언제나 되어야 믿고 순종하겠느냐?”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의 사도들이 자신하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덤 입구로부

did he not save his dear friend? What is the good of healing strangers in Galilee if he cannot save those whom he loves?” And in many other ways they mocked and made light of the teachings and works of Jesus.

168:1.9 (1844.8) And so, on this Thursday afternoon at about half past two o'clock, was the stage all set in this little hamlet of Bethany for the enactment of the greatest of all works connected with the earth ministry of Michael of Nebadon,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divine power during his incarnation in the flesh, since his own resurrection occurred after he had been liberated from the bonds of mortal habitation.

168:1.10 (1845.1) The small group assembled before Lazarus's tomb little realized the presence near at hand of a vast concourse of all orders of celestial beings assembled under the leadership of Gabriel and now in waiting, by direction of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vibrating with expectancy and ready to execute the bidding of their beloved Sovereign.

168:1.11 (1845.2) When Jesus spoke those words of command, “Take away the stone,”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made ready to enact the drama of the resurrection of Lazarus in the likeness of his mortal flesh. Such a form of resurrection involves difficulties of execution which far transcend the usual technique of the resurrection of mortal creatures in morontia form and requires far more celestial personalities and a far greater organization of universe facilities.

168:1.12 (1845.3) When Martha and Mary heard this command of Jesus directing that the stone in front of the tomb be rolled away, they were filled with conflicting emotions. Mary hoped that Lazarus was to be raised from the dead, but Martha, while to some extent sharing her sister's faith, was more exercised by the fear that Lazarus would not be presentable, in his appearance, to Jesus, the apostles, and their friends. Said Martha: “Must we roll away the stone? My brother has now been dead four days, so that by this time decay of the body has begun.” Martha also said this because she was not certain as to why the Master had requested that the stone be removed; she thought maybe Jesus wanted only to take one last look at Lazarus. She was not settled and constant in her attitude. As they hesitated to roll away the stone, Jesus said: “Did I not tell you at the first that this sickness was not to the death? Have I not come to fulfill my promise? And after I came to you, did I not say that, if you would only believe, you should see the glory of God? Wherefore do you doubt? How long before you will believe and obey?”

168:1.13 (1845.4)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his apostles, with the assistance of willing

터 돌을 밀어 굴러 내었다.

유대인들은 대개, 죽음의 천사의 칼끝에 있는 독즙의 방울이 셋째 날이 끝남에 따라서 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세 번째 날이 끝날 때까지 무덤 주위를 돌면서 죽은 육신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혼이 네 번째 날 동이 트기 전에, 죽은 영들의 처소로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영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견해들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 발생했었는지를 듣게 될 훗날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했던 이가 개인적 작용으로,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죽은 자를 일으킨 경우라고, 확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제 2 장. 나사로의 부활

무덤 앞에 서있던 45명쯤 되는 이들은, 세마포 형겔에 싸여서, 동굴 무덤의 오른쪽 밑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나사로의 형체를 어렵듯이 볼 수 있었다. 이 땅의 창조체들이 거의 숨을 죽인 채로 서 있는 동안, 천상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들이 그들의 지휘자인 가브리엘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행동 개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예수는 눈을 들어 말씀했다; “아버지여, 제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알지만, 제가 당신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일속에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외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관찰자 사람들은 꿈쩍도 안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천상의 집단들은 모두 창조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합된 행동으로 부산하게 움직였다. 지상의 시간으로 꼭 12초 후에 나사로의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누워 있던 돌 선반 끝에 몸을 일으켜 걸터앉았다. 그의 몸은 수의로 동여져 있었고, 얼굴은 형겔으로 덮여 있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서자—살아나서—예수는,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였다.

사도들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서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neighbors, laid hold upon the stone and rolled it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168:1.14 (1845.5) It was the common belief of the Jews that the drop of gall on the point of the sword of the angel of death began to work by the end of the third day, so that it was taking full effect on the fourth day. They allowed that the soul of man might linger about the tomb until the end of the third day, seeking to reanimate the dead body; but they firmly believed that such a soul had gone on to the abode of departed spirits ere the fourth day had dawned.

168:1.15 (1845.6) These belief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ead and the departure of the spirits of the dead served to make sure, in the minds of all who were now present at Lazarus's tomb and subsequently to all who might hear of what was about to occur, that this was really and truly a case of the raising of the dead by the personal working of one who declared he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2. THE RESURRECTION OF LAZARUS

168:2.1 (1845.7) As this company of some forty-five mortals stood before the tomb, they could dimly see the form of Lazarus, wrapped in linen bandages, resting on the right lower niche of the burial cave. While these earth creatures stood there in almost breathless silence, a vast host of celestial beings had swung into their places preparatory to answering the signal for action when it should be given by Gabriel, their commander.

168:2.2 (1846.1)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aid: “Father, I am thankful that you heard and granted my request. I kno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because of those who stand here with me, I thus speak with you,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into the world, and that they may know that you are working with me in that which we are about to do.” And when he had prayed,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168:2.3 (1846.2) Though these human observers remained motionless, the vast celestial host was all astir in unified action in obedience to the Creator's word. In just twelve seconds of earth time the hitherto lifeless form of Lazarus began to move and presently sat up on the edge of the stone shelf whereon it had rested. His body was bound about with grave cloths, and his face was covered with a napkin. And as he stood up before them — alive — Jesus said, “Loose him and let him go.”

168:2.4 (1846.3) All, save the apostles, with Martha and Mary, fled to the house. They were pale with fright and overcome with astonishment. While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나사로는 예수와 사도들에게 인사하였고, 수의를 왜 입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에서 잠들어 있었는지를 물었다. 마르다가 나사로에게 그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예수와 사도들은 한 쪽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요일에 죽었다가 목요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어서 잠에 빠져 있었던 동안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이제 이 지역우주에서 자기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된 예수님의 개인 성구현된 조절자는, 전에 나사로에게 있었다가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조절자에게 부활된 그의 혼과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나사로는 자매들과 함께 예수께로 가서, 주(主)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는 나사로를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나의 아들이아, 더 영화로운 형태로 부활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도 너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였던 진리—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서 육신을 위해 음식을 들도록 하자.”

그들이 집을 향하여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한 필사 창조체가 죽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되었던 유란시아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례(事例)를 기록하면서, 잠시 쓰임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던 천상의 집단 무리들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나사로는 무엇이 발생했었는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아팠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있었던 이 나흘 동안에 관하여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죽음으로 인하여 잠이 든 자에게는 시간이 실존하지 않는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를 더욱 배척하였다.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다.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나사로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베다니로 갔으며, 바리새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새로 발생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서둘러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다.

제 3 장. 산헤드린 회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이 사람의 증언이 왕국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굳혀주기

some tarried, many hastened to their homes.

^{168:2.5 (1846.4)} Lazarus greeted Jesus and the apostles and asked the meaning of the grave cloths and why he had awakened in the garden. Jesus and the apostles drew to one side while Martha told Lazarus of hi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She had to explain to him that he had died on Sunday and was now brought back to life on Thursday, inasmuch as he had had no consciousness of time since falling asleep in death.

^{168:2.6 (1846.5)} As Lazarus came out of the tomb,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now chief of his kind in this local universe, gave command to the former Adjuster of Lazarus, now in waiting, to resume abode in the mind and soul of the resurrected man.

^{168:2.7 (1846.6)} Then went Lazarus over to Jesus and, with his sisters, knelt at the Master's feet to give thanks and offer praise to God. Jesus, taking Lazarus by the hand, lifted him up, saying: “My son, what has happened to you will also be experienced by all who believe this gospel except that they shall be resurrected in a more glorious form. You shall be a living witness of the truth which I spoke —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But let us all now go into the house and partake of nourishment for these physical bodies.”

^{168:2.8 (1846.7)} As they walked toward the house, Gabriel dismissed the extra groups of the assembled heavenly host while he made record of the first instance on Urantia, and the last, where a mortal creature had been resurrected in the likeness of the physical body of death.

^{168:2.9 (1846.8)} Lazarus could hardly comprehend what had occurred. He knew he had been very sick, but he could recall only that he had fallen asleep and been awakened. He was never able to tell anything about these four days in the tomb because he was wholly unconscious. Time is nonexistent to those who sleep the sleep of death.

^{168:2.10 (1846.9)} Though many believed in Jesus as a result of this mighty work, others only hardened their hearts the more to reject him. By noon the next day this story had spread over all Jerusalem. Scores of men and women went to Bethany to look upon Lazarus and talk with him, and the alarmed and disconcerted Pharisees hastily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that they might determine what should be done about these new developments.

3. MEETING OF THE SANHEDRIN

^{168:3.1 (1847.1)} Even though the testimony of this man raised from the dead did much to consolidate

는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그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결정을 촉진시켰다.

다음 날, 금요일 한 시에, 산헤드린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더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다. 두 시간 이상의 토론과 신랄한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였다고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판례를 무시하고 재판 없이 산헤드린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예수를 즉시 죽여 버리자는 제안을 어떤 바리새인이 하였다.

유대인 영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엄 있는 모임은 예수를 체포하여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유대인 종교법을 모독하였다는 다른 여러 가지 트집으로 재판하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선포하였다. 그를 죽이겠다는 선포를 하게 된 일은 전에도 한번 있었지만, 산헤드린이 재판하기 전에 죽이자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전대미문의 조치가 제안되자 14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한꺼번에 사퇴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퇴자들은 두 주일 가까이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 날 산헤드린을 그만둔 이 14명의 무리들은 다시는 공회에 나가지 않았다. 후에 이 사퇴자들이 처리되었을 때, 다섯 명의 다른 회원들도 예수께 대하여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 이유로 쫓겨났다. 이 19명의 회원들을 축출함으로써 인하여 산헤드린은 거의 전원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예수를 재판하여 유죄(有罪) 평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주에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산헤드린 앞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그들의 증언을 다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이 실질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하였더라도, 이 일은 물론 예수가 행한 다른 모든 기적들도 귀신들의 영주의 힘 탓이며 예수도 그와 한 패인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던지간에, 그가 그 일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모든 대중들이 곧 그를 믿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 영도자들은 믿었다; 더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믿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하였던,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을 산헤드린 앞에서 발

the faith of the mass of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it had little or no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religious leaders and rulers at Jerusalem except to hasten their decision to destroy Jesus and stop his work.

168:3.2 (1847.2) At one o'clock the next day, Friday, the Sanhedrin met to deliberate further on the question, “What shall we do with Jesus of Nazareth?” After more than two hours of discussion and acrimonious debate, a certain Pharisee presented a resolution calling for Jesus' immediate death, proclaiming that he was a menace to all Israel and formally committing the Sanhedrin to the decision of death, without trial and in defiance of all precedent.

168:3.3 (1847.3) Time and again had this august body of Jewish leaders decreed that Jesus be apprehended and brought to trial on charges of blasphemy and numerous other accusations of flouting the Jewish sacred law. They had once before even gone so far as to declare he should die, but this was the first time the Sanhedrin had gone on record as desiring to decree his death in advance of a trial. But this resolution did not come to a vote since fourteen members of the Sanhedrin resigned in a body when such an unheard-of action was proposed. While these resignations were not formally acted upon for almost two weeks, this group of fourteen withdrew from the Sanhedrin on that day, never again to sit in the council. When these resignations were subsequently acted upon, five other members were thrown out because their associates believed they entertained friendly feelings toward Jesus. With the ejection of these nineteen men the Sanhedrin was in a position to try and to condemn Jesus with a solidarity bordering on unanimity.

168:3.4 (1847.4) The following week Lazarus and his sisters were summoned to appear before the Sanhedrin. When their testimony had been heard, no doubt could be entertained that Lazar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ough the transactions of the Sanhedrin virtually admitted the resurrection of Lazarus, the record carried a resolution attributing this and all other wonders worked by Jesus to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with whom Jesus was declared to be in league.

168:3.5 (1847.5) No matter what the source of his wonder-working power, these Jewish leaders were persuaded that, if he were not immediately stopped, very soon all the common people would believe in him; and further, that serious complications with the Roman authorities would arise since so many of his believers regarded him as the Messiah, Israel's deliverer.

168:3.6 (1847.6) It was at this same meeting of the Sanhedrin that Caiaphas the high priest first gave expression to that old Jewish adage, which he so

표하였던 것도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음울한 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가 비록 산헤드린의 행동에 관한 경고를 받아들였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벳바게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미리 협의하였던 대로, 일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베다니에 사는 그 가족들을 떠나,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제 4 장. 기도에 대한 응답

베다니에서 펠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은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주(主)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은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으므로 주(主)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베다니로부터 비밀리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수는 곧 닥치게 될 시험에 대비하도록 가르치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열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커다란 격동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최근의 체험이 기도와 그 응답에 관련되어 있기에, 그것을 토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펠라텔피아에서 베다니 메신저에게 한 “이 병은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예수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었다. 그 날 하루 종일, 그들은 되풀이하여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 질문을 토의하였다.

그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기도는 무한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유한자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만드는 것은 유한자의 지식, 지혜, 그리고 속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응답도 무한자의 통찰력, 목적, 이상, 그리고 특권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질 수 밖에 없다. 기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영적 응답의 수신을 만들어가는 것 사이에서 물질적 현상들의 끊이지 않는 연속성은 결코 관찰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겉으로 보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지연은 종종 더 나은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해도 크게 늦어지는 어떤 선한 이유가 있다. 나사로의 병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가 말씀하였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지 11시간이 되었었다. 영적 세상에서의 우월한 관점이 더 나은 응답을 구상하고 있을 때, 즉 사람의 단순한 마음에서의 기도와 대조하여 그에 대응되는 사람의 영에서의 탄원에 부합되는 그러한 응답이 구

many times repeated: “It is better that one man die, than that the community perish.”

168:3.7 (1847.7) Although Jesus had received warning of the doings of the Sanhedrin on this dark Friday afternoon, he was not in the least perturbed and continued resting over the Sabbath with friends in Bethpage, a hamlet near Bethany. Early Sunday morning Jesus and the apostles assembled, by prearrangement, at the home of Lazarus, and taking leave of the Bethany family, they started on their journey back to the Pella encampment.

4. THE ANSWER TO PRAYER

168:4.1 (1848.1) On the way from Bethany to Pella the apostles asked Jesus many questions, all of which the Master freely answered except those involving the details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uch problems were beyond the comprehension capacity of his apostles; therefore did the Master decline to discuss these questions with them. Since they had departed from Bethany in secret, they were alone. Jesus therefore embraced the opportunity to say many things to the ten which he thought would prepare them for the trying days just ahead.

168:4.2 (1848.2) The apostles were much stirred up in their minds and spent considerable time discussing their recent experiences as they were related to prayer and its answering. They all recalled Jesus' statement to the Bethany messenger at Philadelphia, when he said plainly, “This sickness is not really to the death.” And yet, in spite of this promise, Lazarus actually died. All that day, again and again, they reverted to the discussion of this question of the answer to prayer.

168:4.3 (1848.3) Jesus' answers to their many quest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68:4.4 (1848.4) 1. Prayer is an expression of the finite mind in an effort to approach the Infinite. The making of a prayer must, therefore, be limited by the knowledge, wisdom, and attributes of the finite; likewise must the answer be conditioned by the vision, aims, ideals, and prerogatives of the Infinite. There never can be observed an unbroken continuity of material phenomena between the making of a prayer and the reception of the full spiritual answer thereto.

168:4.5 (1848.5) 2. When a prayer is apparently unanswered, the delay often betokens a better answer, although one which is for some good reason greatly delayed. When Jesus said that Lazarus's sickness was really not to the death, he had already been dead eleven hours. No sincere prayer is denied an answer except when the superior viewpoint of the spiritual world has devised a better answer, an answer which meets

상되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진지한 기도도 응답이 거절되지 않는다.

3. 시간의 기도들이, 영에 의하여 작성되고 신앙 안에서 표현될 때에는, 종종 너무도 광대하고 모든 것을-에워싸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은 오직 영원에서만 응답될 수 있다; 유한자의 탄원이 때로는 무한자의 장악을 너무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응답은 접수성을 위한 적절한 수용능력이 창조되기를 기다리도록 오랫동안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기도는 너무나 모든 것을-에워싸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직 파라다이스에서만 그 응답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4. 필사자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불멸의 상태를 달성하여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지닌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 존재의 기도는 그러한 개별존재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에만 응답될 수 있는 때가 많다.

5. 하느님을-아는 사람의 기도가 몰라서 왜곡되고 미신적 습관에 의해 변형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그러한 기도를 너무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이 도달하였을 때, 탄원하였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6. 모든 참된 기도들은 영적 존재들에게 전달되며, 그러한 모든 탄원들은 영적 방법에서 반드시 응답되며, 그러한 응답들은 모두 영적 실체들에 있어야만 한다. 영적 존재들은 물질적 존재들의 영적 탄원들에 대하여 물질적인 응답을 줄 수 없다. 물질적 존재들은 “영으로 기도”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7. 그 어떤 기도도 영으로 탄생되고 신앙으로 양육된 것이 아니라면 응답에 대한 희망을 바랄 수 없다. 너희의 진지한 신앙은, 너희 신앙이 너희가 기도드리는데 그들 존재들을 항상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최극 지혜와 신성한 사랑에 따라, 너희가 기도 이전에 미리 실질적으로 너희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 탄원에 응답하는 충분한 권한을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8.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 항상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부모는, 자신의 우월한 지혜가, 아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연기되거나, 변형되거나, 분리되거나, 능가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다음 단계까지 연기되도록 대답을 하라고 명령할 때, 미성숙한 자녀에게 항상 부모로서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

9. 영적으로 갈망하는 기도를 망설이지 말라; 너의 탄원에 응답을 받아들일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들 응답은 이 세계가 아니면 다른 세계들에서 실체적 조화우주 달성의 미래의 그러한 영적 차원에 대한 너희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저장될 것이다. 그 곳에서 너희는 예전에 일찍이 했었던 그러나 잘못된-시기였던 탄원을 내가 인지하고 그

the petition of the spirit of man as contrasted with the prayer of the mere mind of man.

168:4.6 (1848.6) 3. The prayers of time, when indited by the spirit and expressed in faith, are often so vast and all-encompassing that they can be answered only in eternity; the finite petition is sometimes so fraught with the grasp of the Infinite that the answer must long be postponed to await the creation of adequate capacity for receptivity; the prayer of faith may be so all-embracing that the answer can be received only on Paradise.

168:4.7 (1848.7) 4. The answers to the prayer of the mortal mind are often of such a nature that they can be received and recognized only after that same praying mind has attained the immortal state. The prayer of the material being can many times be answered only when such an individual has progressed to the spirit level.

168:4.8 (1848.8) 5. The prayer of a God-knowing person may be so distorted by ignorance and so deformed by superstition that the answer thereto would be highly undesirable. Then must the intervening spirit beings so translate such a prayer that, when the answer arrives, the petitioner wholly fails to recognize it as the answer to his prayer.

168:4.9 (1848.9) 6. All true prayers are addressed to spiritual beings, and all such petitions must be answered in spiritual terms, and all such answers must consist in spiritual realities. Spirit beings cannot bestow material answers to the spirit petitions of even material beings. Material beings can pray effectively only when they “pray in the spirit.”

168:4.10 (1849.1) 7. No prayer can hope for an answer unless it is born of the spirit and nurtured by faith. Your sincere faith implies that you have in advance virtually granted your prayer hearers the full right to answer your petitions in accordance with that supreme wisdom and that divine love which your faith depicts as always actuating those beings to whom you pray.

168:4.11 (1849.2) 8. The child is always within his rights when he presumes to petition the parent; and the parent is always within his parental obligations to the immature child when his superior wisdom dictates that the answer to the child's prayer be delayed, modified, segregated, transcended, or postponed to another stage of spiritual ascension.

168:4.12 (1849.3) 9. Do not hesitate to pray the prayers of spirit longing; doubt not that you shall receive the answer to your petitions. These answers will be on deposit, awaiting your achievement of those future spiritual levels of actual cosmic attainment, on this world or on others, whereon it will become possible for you to recognize and appropriate the long-waiting answers to your earlier but ill-timed

응답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0. 영-탄생된 모든 진정한 탄원들은 분명히 응답받는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보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기도들과 탄원들에 대한 충만한 응답의 개인적 받아들임에서의 체험 안에서, 시간-공간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petitions.

168:4.13 (1849.4) 10. All genuine spirit-born petitions are certain of an answer. Ask and you shall receive. But you should remember that you are progressive creatures of time and space; therefore must you constantly reckon with the time-space factor in the experience of your personal reception of the full answers to your manifold prayers and petitions.

제 5 장.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나사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週)에, 산헤드린이 그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경고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과 호기심이 많은 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는 중심지가 된 베다니 집에 머물러 있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로 결의하고, 예수가 행한 기적들 중에서 가장 정점(頂點)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를 살려두어서, 예수가 그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거 하도록 한다면, 예수를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은 잘 한 것이었다. 나사로는 이미 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사로는 자매들을 베다니에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으며,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쉬지도 못하면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너 피신을 하였다. 나사로는 아브너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곳에 있음으로써 사악한 산헤드린의 살인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땅들을 처분한 후 곧, 페레아에 있는 형제와 합류하였다. 한편, 나사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재정 담당자가 되었다. 그는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논쟁에서 아브너를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그가 젊었을 때 베다니에서 그를 죽게 하였던 똑같은 병으로 마침내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5. WHAT BECAME OF LAZARUS

168:5.1 (1849.5) Lazarus remained at the Bethany home, being the center of great interest to many sincere believers and to numerous curious individuals, until the days of the crucifixion of Jesus, when he received warning that the Sanhedrin had decreed his death. The rulers of the Jews were determined to put a stop to the further spread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they well judged that it would be useless to put Jesus to death if they permitted Lazarus, who represented the very peak of his wonder-working, to live and bear testimony to the fact that Jesus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Already had Lazarus suffered bitter persecution from them.

168:5.2 (1849.6) And so Lazarus took hasty leave of his sisters at Bethany, fleeing down through Jericho and across the Jordan, never permitting himself to rest long until he had reached Philadelphia. Lazarus knew Abner well, and here he felt safe from the murderous intrigues of the wicked Sanhedrin.

168:5.3 (1849.7) Soon after this Martha and Mary disposed of their lands at Bethany and joined their brother in Perea. Meantime, Lazarus had become the treasurer of the church at Philadelphia. He became a strong supporter of Abner in his controversy with Paul and the Jerusalem church and ultimately died, when 67 years old, of the same sickness that carried him off when he was a younger man at Bethany.

제 169 편 펠라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 168

유랜시아 책

17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69 편 펠라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섹션

소개

제 1 장.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제 2 장.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

제 3 장. 부자와 거지

제 4 장. 아버지와 그의 왕국

PAPER 169

LAST TEACHING AT PELLA

SECTIONS

Introduction

1. Parable of the Lost Son

2. Parable of the Shrewd Steward

3. The Rich Man and the Beggar

4. The Father and His Kingdom

소개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3월 6일 월요일 늦은 저녁에, 펠라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예수가 그곳에 머무신 마지막 주가 되었으며, 군중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매우 활발하였다. 매일 오후 무리들에게 설교하였고, 매일 밤에는 야영지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과 특정한 상급 제자들을 위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주(主)께서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 야영지에도 전해졌으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였다.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처럼 자극하는 어떤 것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때 예수께서 이 짧은 한 주 동안에 펠라에서의 가르침으로 계획하였던, 왕국의 대중적 사명활동의 두 번째 위상이 최고 정점에 달하였으며, 그 후에는 페레아의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비참한 체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바리새인들과 우두머리 사제들은 그들의 고소 내용들을 공식화하고 고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主)의 가르침들을 배척하였다:

1.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그는 악인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INTRODUCTION

169:0.1 (1850.1) LATE on Monday evening, March 6, Jesus and the ten apostles arrived at the Pella camp. This was the last week of Jesus' sojourn there, and he was very active in teaching the multitude and instructing the apostles. He preached every afternoon to the crowds and each night answered questions for the apostles and certain of the more advanced disciples residing at the camp.

169:0.2 (1850.2) Word regarding the resurrection of Lazarus had reached the encampment two days before the Master's arrival, and the entire assembly was agog. Not since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had anything occurred which so aroused the imagination of the people. And thus it was at the very height of the second phase of the public ministry of the kingdom that Jesus planned to teach this one short week at Pella and then to begin the tour of southern Perea which led right up to the final and tragic experiences of the last week in Jerusalem.

169:0.3 (1850.3) The Pharisees and the chief priests had begun to formulate their charges and to crystallize their accusations. They objected to the Master's teachings on these grounds:

169:0.4 (1850.4) 1. He is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he receives the ungodly and even eats

다.

2.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하느님과 같다고 생각한다.

3. 그는 법을 파괴하는 자이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율법을 조롱하였다.

4. 그는 귀신들과 결탁하고 있다. 귀신들의 영주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이적들을 행한다.

with them.

169:0.5 (1850.5) 2. He is a blasphemer; he talks about God as being his Father and thinks he is equal with God.

169:0.6 (1850.6) 3. He is a lawbreaker. He heals disease on the Sabbath and in many other ways flouts the sacred law of Israel.

169:0.7 (1850.7) 4. He is in league with devils. He works wonders and does seeming miracles by the power of Beelzebub, the prince of devils.

제 1 장.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군중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주(主)는 이 설교 속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후에, 그가 좋아하는 돌아온 탕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더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사무엘로부터 요한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하느님을 찾으라고—진리를 탐구하라고—훈계하여 왔다. 그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동안에 그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을 발견하자, 그것을 어깨에 메어 친절하게 데리고 돌아와서 양 떼 속으로 다시 넣어주었다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해 주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자,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면서, 잃었던 양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함께 기쁨을 향유하자고 그들을 초대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욱 기뻐한다. 혼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을 더욱 깊게 해줄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의 아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사실이다.

“회개한 후에야, 그리고 희생물과 참회의 행위의 결과로 신성한 용납이 온다고 너희가 배워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버지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너희를 용납하며, 너희를 찾아서 양 무리에게로, 영적 진보가 있는 아들관계의 왕국으로 기뻐하면서 데리고 오도록, 아들과 그의 연관-동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으며, 길을 잃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목걸이를 만들려고 은으로 된 열 개의 동전들을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을 밝히고 집안을 열심히 쓸면서 잃어버린 그 은 동전이 발견될 때

1. PARABLE OF THE LOST SON

169:1.1 (1850.8) On Thursday afternoon Jesus talked to the multitude about the “Grace of Salvation.” In the course of this sermon he retold the story of the lost sheep and the lost coin and then added his favorit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Said Jesus:

169:1.2 (1850.9) “You have been admonished by the prophets from Samuel to John that you should seek for God — search for truth. Always have they said,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And all such teaching should be taken to heart. But I have come to show you that, while you are seeking to find God, God is likewise seeking to find you. Many times have I told you the story of the good shepherd who left the ninety and nine sheep in the fold while he went forth searching for the one that was lost, and how, when he had found the straying sheep, he laid it over his shoulder and tenderly carried it back to the fold. And when the lost sheep had been restored to the fold, you remember that the good shepherd called in his friends and bade them rejoice with him over the finding of the sheep that had been lost. Again I say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the ninety and nine just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The fact that souls are lost only increases the interest of the heavenly Father. I have come to this world to do my Father’s bidding, and it has truly been said of the Son of Man that he is a friend of publicans and sinners.

169:1.3 (1851.1) “You have been taught that divine acceptance comes after your repentance and as a result of all your works of sacrifice and penitence, but I assure you that the Father accepts you even before you have repented and sends the Son and his associates to find you and bring you, with rejoicing, back to the fold, the kingdom of sonship and spiritual progress. You are all like sheep which have gone astray, and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o are lost.

169:1.4 (1851.2) “And you should also remember the story of the woman who, having had ten pieces of silver made into a necklace of adornment, lost one piece, and how she lit the lamp and diligently

까지 쉬지 않고 찾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잃었던 그 동전을 발견하자마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쁨을 향유하자.'고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양 떼로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의 현존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너희의 가슴속에 새겨두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찾아 나설 때, 구원을 필요로 하며 서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며,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도 한다. 그 양은 부지불식간에 길을 잃게 된 것이다; 그 동전은 시간이라는 먼지로 덮이고, 사람들의 일들로 누적되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어느 부자 농부의 철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는데, 그 아들은 고의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나라 땅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양들은 아무 의도 없이 방황하게 되었지만, 이 젊은이는 계획적으로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란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근심 걱정이 없고 무책임(無責任)하여 항상 즐거운 시간만을 찾으며 책임은 회피하였으나, 반면에 그의 형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었다. 이윽고 이 두 형제들의 사이가 나빠졌으며; 둘이 항상 다투고 언쟁을 하였다. 동생은 명랑하고 활발하였지만, 게으르고 신뢰성이 없었다; 형은 침착하고 부지런하였지만, 반면에 자아-중심적이고 무뚝뚝하며 교만하였다. 동생은 놀기는 좋아하였지만 일하는 것은 피하였다; 형은 일에 열심이었지만 잘 놀지 않았다. 두 형제의 불화가 너무 심해지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오게 될 당신의 소유물들 중 3분의 1을 저에게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집에 있으면 형 때문에 얼마나 불만스러워 하는지를 알고, 자기 재산(財産)을 떼어서, 작은아들의 몫을 주었다.

"그 젊은이는 몇 주 후에 자기 돈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재미있으면서도 돈을 벌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곧 모든 유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재산이 모두 떨어졌을 때, 그 지방에 오랫동안의 기근이 닥쳐왔으며, 곤궁한 신세가 되었다. 그리하여 배고픔을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고용이 되었는데, 그를 돼지 키우는 곳으로 보냈다. 그 젊은이는 돼지들이 먹는 옥수수 껍질로 배를 채우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swept the house and kept up the search until she found the lost piece of silver. And as soon as she found the coin that was lost, she called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that was lost.' So again I say, there is alway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and returns to the Father's fold. And I tell you this story to impress upon you that the Father and his Son go forth to search for those who are lost, and in this search we employ all influences capable of rendering assistance in our diligent efforts to find those who are lost, those who stand in need of salvation. And so, while the Son of Man goes out in the wilderness to seek for the sheep gone astray, he also searches for the coin which is lost in the house. The sheep wanders away, unintentionally; the coin is covered by the dust of time and obscured by the accumulation of the things of men.

169:1.5 (1851.3) "And now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a thoughtless son of a well-to-do farmer who deliberately left his father's house and went off into a foreign land, where he fell into much tribulation. You recall that the sheep strayed away without intention, but this youth left his home with premeditation. It was like this:

169:1.6 (1851.4) "A certain man had two sons; one, the younger, was lighthearted and carefree, always seeking for a good time and shirking responsibility, while his older brother was serious, sober, hard-working, and willing to bear responsibility. Now these two brothers did not get along well together; they were always quarreling and bickering. The younger lad was cheerful and vivacious, but indolent and unreliable; the older son was steady and industrious, at the same time self-centered, surly, and conceited. The younger son enjoyed play but shunned work; the older devoted himself to work but seldom played. This association became so disagreeable that the younger son came to his father and said: 'Father, give me the third portion of your possessions which would fall to me and allow me to go out into the world to seek my own fortune.' And when the father heard this request, knowing how unhappy the young man was at home and with his older brother, he divided his property, giving the youth his share.

169:1.7 (1851.5) "Within a few weeks the young man gathered together all his funds and set out upon a journey to a far country, and finding nothing profitable to do which was also pleasurable, he soon wasted all his inheritance in riotous living. And when he had spent all, there arose a prolonged famine in that country, and he found himself in want. And so, when he suffered hunger and his distress was great, he found employment with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the fields to feed swine. And the young man would fain have filled himself with the husks

“어느 날, 매우 배가 고팠을 때,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고용된 많은 하인들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빵이 풍성한데, 나는 이곳 이국땅에서 돼지나 키우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다만 저를 고용된 하인들 중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가슴의 결정이 되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다.

“이 때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그 명량하고 철없는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였다. 이 아버지는 작은아들을 사랑하였으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사랑 가득한 연민으로 감격하여, 그를 만나려고 뛰어 나갔으며, 자애롭게 환영하면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인사가 끝나자,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려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그 아들은 고백을 다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뛰어 달려오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내가 보관해 둔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행복한 그 아버지는 발이 부르트고 기진맥진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흥겹게 놀도록 하자.’ 그들은 모두 그 아버지에게 모여 그의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향유하였다.

“이 무렵, 그들이 축하하고 있는 동안, 큰아들이 들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면서 음악 소리와 춤을 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뒷문으로 가서, 하인들 중 하나를 불러내어 이 모든 잔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하인이, ‘오래도록 잃었던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기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오셔서 동생을 환영하고 당신 그를 다시 아버지 집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 형은 이 말을 듣자, 너무나도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생을 환영한 것에 대하여 큰아들이 분개하였다는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하였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which the swine ate, but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169:1.8 (1852.1) “One day, when he was very hungry, he came to himself and said: ‘How many hired servants of my father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while I perish with hunger, feeding swine off here in a foreign country!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only be willing to make me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when the young man had reached this decision, he arose and started out for his father’s house.

169:1.9 (1852.2) “Now this father had grieved much for his son; he had missed the cheerful, though thoughtless, lad. This father loved this son and was always on the lookout for his return, so that on the day he approached his home, even while he was yet afar off, the father saw him and, being moved with loving compassion, ran out to meet him, and with affectionate greeting he embraced and kissed him. And after they had thus met, the son looked up into his father’s tearful face and said: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I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a son’ — but the lad did not find opportunity to complete his confession because the overjoyed father said to the servants who had by this time come running up: ‘Bring quickly his best robe, the one I have saved, and put it on him and put the son’s ring on his hand and fetch sandals for his feet.’

169:1.10 (1852.3) “And then, after the happy father had led the footsore and weary lad into the house, he called to his servants: ‘Bring on the fatt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make merry,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all gathered about the father to rejoice with him over the restoration of his son.

169:1.11 (1852.4) “About this time, while they were celebrating, the elder son came in from his day’s work in the field, and as he drew near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the dancing. And when he came up to the back door, he called out one of the servants and inquired as to the meaning of all this festivity. And then said the servant: ‘Your long-lost brother has come h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d calf to rejoice over his son’s safe return. Come in that you also may greet your brother and receive him back into your father’s house.’

169:1.12 (1852.5) “But when the older brother heard this, he was so hurt and angry he would not go into the house. When his father heard of his resentment of the welcome of his younger brother, he went out to entreat him. But the older son would not yield to his father’s persuasion. He answered his father, saying: ‘Here these many years have I served you, never transgressing the least of your commands, and yet you never gave me even a kid that I might make merry with my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삼 년 동안 꼬박 아버지 곁에서 보살펴 드렸는데, 저의 충성스러운 봉사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서둘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를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였기 때문에,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내 아들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언제라도 새끼 양을 잡아서 네 친구들과 흥겹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아들이 네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과;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 비유는 예수가 청중들의 가슴속에,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버지의 기꺼운 마음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시한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효력적인 것들 중의 하나였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말씀하기를 대단히 좋아하였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양떼의 참 목자인 자기 아들과 함께 나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혼동되거나, 좌절당하거나, 또는 일생의 물질적인 염려들과 축재(蓄財)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는 신성한 노력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자를 환영하는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아버지의 집과 가슴속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복귀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가르치시는 동안 이 방탕한 아들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하였는지 모른다. 예수는 이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의 이웃에 대한 정의(正義)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좋아하였다.

제 2 장.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

어느 날 저녁,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의 말씀들 중의 하나에 대하여 거론하며 말했다: “주(主)여,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숨쉴 있게 친구들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세대 안에 있는 왕국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다고 하신 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신 것입니까?” 예수는 대답하였다:

“너희들 중에 일부는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기 전, 너희 사업상의 연관-동료들과의 거래에서 매우 영민하였다. 만일 너희가 부당했고 그리고 가

friends. I have remained here to care for you all these years, and you never made rejoicing over my faithful service, but when this your son returns, having squandered your substance with harlots, you make haste to kill the fatted calf and make merry over him.’

169:1.13 (1852.6) “Since this father truly loved both of his sons, he tried to reason with this older one: ‘But, my son, you have all the while been with me, and all this which I have is yours. You could have had a kid at any time you had made friends to share your merriment. But it is only proper that you should now join with me in being glad and merry because of your brother’s return. Think of it, my son, your brother was lost and is found; he has returned alive to us!’”

169:1.14 (1853.1) This was one of the most touching and effective of all the parables which Jesus ever presented to impress upon his hearers the Father’s willingness to receive all who seek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169:1.15 (1853.2) Jesus was very partial to telling these three stories at the same time. He presented the story of the lost sheep to show that, when men unintentionally stray away from the path of life, the Father is mindful of such *lost* ones and goes out, with his Sons, the true shepherds of the flock, to seek the lost sheep. He then would recite the story of the coin lost in the house to illustrate how thorough is the divine *searching* for all who are confused, confounded, or otherwise spiritually blinded by the material cares and accumulations of life. And then he would launch forth into the telling of this parable of the lost son, the reception of the returning prodigal, to show how complete is the *restoration* of the lost son into his Father’s house and heart.

169:1.16 (1853.3) Many, many times during his years of teaching, Jesus told and retold this story of the prodigal son. This parable and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were his favorite means of teaching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neighborliness of man.

2. PARABLE OF THE SHREWD STEWARD

169:2.1 (1853.4) One evening Simon Zelotes, commenting on one of Jesus’ statements, said: “Master, what did you mean when you said today that many of the children of the world are wiser in their generation than are the children of the kingdom since they are skillful in making friends with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Jesus answered:

169:2.2 (1853.5) “Some of you, before you entered the kingdom, were very shrewd in dealing with your business associates. If you were unjust and often

끔 불공평했다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에 오로지 눈을 돌리며 너희 사업을 거래했다는 것에서 신중하고도 통찰력이 있었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현재의 기쁨을 마련하듯이 한편으로 장차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에서의 너희 즐거움을 또한 확보하면서, 왕국 안에서 너희 삶을 그렇게 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자아에 대한 봉사 안에서, 네 자신을 위해 이익을 만드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였다면, 너희가 이제 사람의 형제신분에서의 하인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청지기이면서도, 어찌서 너희는 왕국을 위하여 혼을 얻는 것에서는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는 어떤 영리하지만 부당한 청지기를 둔 부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 주인의 손님을 억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의 자금도 직접 낭비하고 탕진하였다.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는 청지기를 앞에 불러 이들 소문의 의미를 물으면서 즉시 청지기직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그의 주인의 관련사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이 불충한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청지기직을 잃게 되었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다.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내 주인과 거래했던 모든 사람의 집에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겠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부르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름 일 백 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청지기는 말하기를, ‘기록된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와서 오십이라고 고쳐라.’ 또 다른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는 ‘밀 일 백 가마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고 써라.’ 그리고 다른 많은 빚진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다. 정직하지 않은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친구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의 주님이자 주인조차도, 나중에 이것을 알고는, 그의 불충한 청지기가 앞날의 빈곤과 역경에 대비한 태도에서는 적어도 충명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때때로,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준비에서, 이런 식으로,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로움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확실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삶을 그렇게 수행하여,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시들 때, 너희가 영원한 거처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정의의 세력들과 영원한 친구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unfair, you were nonetheless prudent and farseeing in that you transacted your business with an eye single to your present profit and future safety. Likewise should you now so order your lives in the kingdom as to provide for your present joy while you also make certain of your future enjoyment of treasures laid up in heaven. If you were so diligent in making gains for yourselves when in the service of self, why should you show less diligence in gaining souls for the kingdom since you are now servants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stewards of God?

169:2.3 (1853.6) “You may all learn a lesson from the story of a certain rich man who had a shrewd but unjust steward. This steward had not only oppressed his master’s clients for his own selfish gain, but he had also directly wasted and squandered his master’s funds. When all this finally came to the ears of his master, he called the steward before him and asked the meaning of these rumors and required that he should give immediate accounting of his stewardship and prepare to turn his master’s affairs over to another.

169:2.4 (1853.7) “Now this unfaithful steward began to say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I am about to lose this stewardship? I have not the strength to dig; to beg I am ashamed. I know what I will do to make certain that, when I am put out of this stewardship, I will be welcomed into the houses of all who do business with my master.’ And then, calling in each of his lord’s debtors,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He answered, ‘A hundred measures of oil.’ Then said the steward, ‘Take your wax board bond, sit down quickly, and change it to fifty.’ Then he said to another debtor, ‘How much do you owe?’ And he replie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Then said the steward, ‘Take your bond and write fourscore.’ And this he did with numerous other debtors. And so did this dishonest steward seek to make friends for himself after he would be discharged from his stewardship. Even his lord and master, when he subsequently found out about this, was compelled to admit that his unfaithful steward had at least shown sagacity in the manner in which he had sought to provide for future days of want and adversity.

169:2.5 (1854.1) “And it is in this way that the sons of this world sometimes show more wisdom in their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an do the children of light. I say to you who profess to be acquiring treasure in heaven: Take lessons from those who make friends with the mammon of unrighteousness, and likewise so conduct your lives that you make eternal friendship with the forces of righteousness in order that, when all things earthly fail, you shall be joyfully received into the eternal habitations.

“내가 단언하겠는데,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할 것이며,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관련사에서 선견과 고결한-순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하늘왕국의 참된 재산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게 될 때, 어떻게 너희가 신실하고도 신중하다고 여겨지리라고 바랄 수가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신실한 은행가도 아니라면,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신실한 적도 없었다면, 어느 누가 너희 이름으로 큰 보물을 너희에게 줄만큼 그토록 바보이겠느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한다; 그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좋아할 것이고, 혹은 하나에 매달리고 반면에 다른 하나를 몹시 싫어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재산 획득에 탐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고 코웃음 치기 시작했다. 이들 찰썩맞은 청중들은 예수를 무익한 논쟁에 말려들게 하려고 애썼지만, 예수는 자신의 적들과 논쟁하기 거절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의 큰 소리가 야영하는 많은 군중을 끌어 모았다;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예수는 물러나, 밤을 지내려고 자기 천막으로 가셨다.

제 3 장. 부자와 거지

모임이 너무 시끄러워지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휘하며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主)는 말씀하였고, 너희는 그의 말씀을 잘 숙고해 보아라. 오늘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은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나지르인들의 우화를 듣지 못 하였느냐? 재물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한 재물을 탐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비유를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것을 우리들 중에서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 오래 된 이 비유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빛을 깨달을 때까지 너희는 모두 이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디버스라는 이름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매일같이 화려하게 꾸미며 환락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라 하는 부스럼투성이의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출입문 곁에 거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기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 심지어는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윽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데려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도 죽어서 화려하고 호화롭게 매장되었다.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의 나라에서 깨어났으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

169:2.6 (1854.2) “I affirm that he who is faithful in little will also be faithful in much, while he who is unrighteous in little will also be unrighteous in much. If you have not shown foresight and integrity in the affairs of this world, how can you hope to be faithful and prudent when you are trusted with the stewardship of the true riches of the heavenly kingdom? If you are not good stewards and faithful bankers,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be foolish enough to give you great treasure in your own name?

169:2.7 (1854.3) “And again I assert that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one while he despises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169:2.8 (1854.4) When the Pharisees who were present heard this, they began to sneer and scoff since they were much given to the acquirement of riches. These unfriendly hearers sought to engage Jesus in unprofitable argumentation, but he refused to debate with his enemies. When the Pharisees fell to wrangling among themselves, their loud speaking attracted large numbers of the multitude encamped thereabouts; and when they began to dispute with each other, Jesus withdrew, going to his tent for the night.

3. THE RICH MAN AND THE BEGGAR

169:3.1 (1854.5) When the meeting became too noisy, Simon Peter, standing up, took charge, saying: “Men and brethren, it is not seemly thus to dispute among yourselves. The Master has spoken, and you do well to ponder his words. And this is no new doctrine which he proclaimed to you. Have you not also heard the allegory of the Nazarites concerning the rich man and the beggar? Some of us heard John the Baptist thunder this parable of warning to those who love riches and covet dishonest wealth. And while this olden parable is not according to the gospel we preach, you would all do well to heed its lessons until such a time as you comprehend the new light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story as John told it was like this:

169:3.2 (1854.6)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named Dives, who, being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lived in mirth and splendor every day. And there was a certain beggar named Lazarus, who was laid at this rich man's gate, covered with sores and desiring to be fed with the crumbs which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yes,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away by the angels to rest in Abraham's bosom. And then, presently, this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with great pomp and regal splendor. When the rich man

면서,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디버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형벌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나의 아들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즐겼지만, 나사로는 악한 고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너는 고통을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그밖에도, 너와 우리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디버스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에게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증거를 주셔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나의 아들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디버스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죽었던 자가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한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지르인 형제들의 이 우화를 마쳤을 때, 군중들이 조용해졌으므로, 안드레가 일어나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해산시켰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디버스와 나사로의 우화에 관하여 예수께 종종 질문을 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제 4 장. 아버지와 그의 왕국

예수는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 확립을 선포하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설명하는데 항상 힘들어하였다. 예수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 가운데에서 가르치실 때,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대개 국가와 정부를 움직이는 왕 또는 황제에 익숙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다가를 하느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主)는 하늘의 왕국을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으로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형제신분의 영적 우두머리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 최선의 생각을 하였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도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또는 그들의 형으로 언급하였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하인으로, 그리고 왕국 복음의 메신저로 묘사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인성과 속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믿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예수는 아버지의 실체를 증명하는

departed from this world, he waked up in Hades, and finding himself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and beheld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And then Dives cried alou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over Lazarus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to cool my tongue, for I am in great anguish because of my punishment.' And then Abraham replied: 'My son, you should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enjoyed the good things while Lazarus in like manner suffered the evil. But now all this is changed, seeing that Lazarus is comforted while you are tormented. And beside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so that we cannot go to you, neither can you come over to us.' Then said Dives to Abraham: 'I pray you send Lazarus back to my father's house, inasmuch as I have five brothers, that he may so testify as to prevent my brothers from coming to this place of torment.' But Abraham said: 'My son,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And then answered Dives: 'No, No, Father Abraham! but if one go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And then said Abraham: 'If they hear not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even if one were to rise from the dead.'"

169:3.3 (1855.1) After Peter had recited this ancient parable of the Nazirite brotherhood, and since the crowd had quieted down, Andrew arose and dismissed them for the night. Although both the apostles and his disciples frequently asked Jesus questions about the parable of Dives and Lazarus, he never consented to make comment thereon.

4. THE FATHER AND HIS KINGDOM

169:4.1 (1855.2) Jesus always had trouble trying to explain to the apostles that, while they proclaimed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the Father in heaven was *not a king*. At the time Jesus lived on earth and taught in the flesh, the people of Urantia knew mostly of kings and emperors in the governments of the nations, and the Jews had long contemplated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For these and other reasons, the Master thought best to designate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as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 spirit head of this brotherhood as the *Father in heaven*. Never did Jesus refer to his Father as a king. In his intimate talks with the apostles he always referred to himself as the Son of Man and as their elder brother. He depicted all his followers as servants of mankind and messenger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169:4.2 (1855.3) Jesus never gave his apostles a systematic lesson concerning the personality and attributes of the Father in heaven. He never asked men to believe in his Father; he took it for granted they did. Jesus never belittled himself by offering

논리를 내어 놓음으로서 품위를 떨어트린 적이 없었다. 아버지께 관한 그의 가르침들은 모두 그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아들만이 실제로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그러한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 아들을 아는 자는 또한 아버지도 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서서 그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나타내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느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아버지께 대하여 다르게 선언한 적이 없었다.

너희는 예수의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일생에서의 신성을 관찰함으로써, 하느님께 관하여 배우는 것이다. 주(主)의 일생으로부터 너희는 각자, 영적이며 신성한 실체, 실체이며 영원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의 수용능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느님의 개념을 동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인간 일생이 겪은 유한한 체험의 시간-공간 개인성 안에서 무한자가 초점화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이해할 희망은 결코 바랄 수 없다.

하느님은 오직 체험에서의 실체로써만 알려지실 수 있다는 것과; 마음에서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그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잘 아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하느님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아는 바로 그 만큼, 그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말한 것을 아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예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앎으로써, 너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느님의 계시였다.

예수가 신(神)을 언급할 때, 히브리 경전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과 아버지라는 오직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주(主)가 자기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부르실 때에는 보통 복수의 하느님(삼위일체)을 표시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족적 하느님에 대한 진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야훼라는 단어는 아니었다.

예수는 아버지를 왕으로 부른 적이 결코 없었으며, 회복되는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과 그리고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이 계시하는 영적 형제신분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한 번의 예외—“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선포—를 제외하고는, 파라다이스의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서술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에서도 신(神)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결코 없었다.

예수는 신(神)에 대한 관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아는 체험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느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가능한 가장 큰 의미로 납

arguments in proof of the reality of the Father. His teaching regarding the Father all centered in the declaration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that he who has seen the Son has seen the Father; that the Father, like the Son, knows all things; that only the Son really knows the Father, and he to whom the Son will reveal him; that he who knows the Son knows also the Father; and that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to reveal their combined natures and to show forth their conjoint work. He never made other pronouncements about his Father except to the woman of Samaria at Jacob's well, when he declared, "God is spirit."

169:4.3 (1856.1) You learn about God from Jesus by observing the divinity of his life, not by depending on his teachings. From the life of the Master you may each assimilate that concept of God which represents the measure of your capacity to perceive realities spiritual and divine, truths real and eternal. The finite can never hope to comprehend the Infinite except as the Infinite was focalized in the time-space personality of the finite experience of the human life of Jesus of Nazareth.

169:4.4 (1856.2) Jesus well knew that God can be known only by the realities of experience; never can he be understood by the mere teaching of the mind. Jesus taught his apostles that, while they never could fully understand God, they could most certainly *know* him, even as they had known the Son of Man. You can know God, not by understanding what Jesus said, but by knowing what Jesus was. Jesus was a revelation of God.

169:4.5 (1856.3) Except when quoting the Hebrew scriptures, Jesus referred to Deity by only two names: God and Father. And when the Master made reference to his Father as God, he usually employed the Hebrew word signifying the plural God (the Trinity) and not the word Yahweh, which stood for the progressive conception of the tribal God of the Jews.

169:4.6 (1856.4) Jesus never called the Father a king, and he very much regretted that the Jewish hope for a restored kingdom and John's proclamation of a coming kingdom made it necessary for him to denominate his proposed spiritual brotherhood the kingdom of heaven. With the one exception — the declaration that "God is spirit" — Jesus never referred to Deity in any manner other than in terms descriptive of his own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First Source and Center of Paradise.

169:4.7 (1856.5) Jesus employed the word God to designate the *idea* of Deity and the word Father to designate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When the word Father is employed to denote God, it should be understood in its largest possible meaning. The word God cannot be defined and

득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정의(定意)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무한한 개념을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정의(定意)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필사자 실존의 과정에서 사람과 연관되는바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아버지의 인간 개념을 대표하는 데 사용해도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은 하느님들의 하느님이었으며, 한편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다. 예수는 엘로힘의 개념을 받아들였고 존재들의 이 최극 무리를 하느님으로 불렀다. 종족 신(神)인 야훼의 개념 대신에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범-세계적 형제신분 관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신(神)화한 종족적 아버지인 야훼 개념을, 사람의 모든 자녀의 아버지의 관념,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로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 우주들의 하느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 아버지는 하나였고 그리고 동일한 파라다이스 신(神)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결코 엘로힘(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현시활동된 것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는 그가 세계들을 향한 엘로힘(하느님)의 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은 엘로힘(하느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 대한 육체 속에서의 계시라고 선언하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신성한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만을 대표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참으로 그와 같은 엘로힘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필사자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계시가, 필사 사람들에게 이해될지도 모를 한도만큼 그 안에서, 자신의 일생의 계시를 자신의 아버지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국한하기로 하였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다른 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육신화한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일생 속에서 개인적 모습으로 그려져 계시되었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예수가 비록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일생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가르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오직 두 가지만을 가르치셨는데: 자신 속에 계신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창조체들과의 모든 관계성에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었다. 이 날 저녁,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며; 나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으로써 예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를 하였다.

그러나 명심하라! 예수는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반면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느님을 안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본 것 그 자체가 혼에게 계시된 아버지를 체험한 것이다. 우주들의 하느님은 멀리 퍼져 나가는 창조를 지배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therefore stands for the infinite concept of the Father, while the term Father, being capable of partial definition, may be employed to represent the human concept of the divine Father as he is associated with man during the course of mortal existence.

169:4.8 (1856.6) To the Jews, Elohim was the God of gods, while Yahweh was the God of Israel. Jesus accepted the concept of Elohim and called this supreme group of beings God. In the place of the concept of Yahweh, the racial deity, he introduced the idea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world-wide brotherhood of man. He exalted the Yahweh concept of a deified racial Father to the idea of a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men, a divine Father of the individual believer. And he further taught that this God of universes and this Father of all men were one and the same Paradise Deity.

169:4.9 (1856.7) Jesus never claimed to be the manifestation of Elohim (God) in the flesh. He never declared that he was a revelation of Elohim (God) to the worlds. He never taught that he who had seen him had seen Elohim (God). But he did proclaim himself a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in the flesh, and he did say that whoso had seen him had seen the Father. As the divine Son he claimed to represent only the Father.

169:4.10 (1857.1) He was, indeed, the Son of even the Elohim God; but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to the mortal sons of God, he chose to limit his life revelation to the portrayal of his Father's character in so far as such a revelation might be comprehensible to mortal man. As regards the character of the other persons of the Paradise Trinity, we shall have to be content with the teaching that they are altogether like the Father, who has been revealed in personal portraiture in the life of his incarnated Son, Jesus of Nazareth.

169:4.11 (1857.2) Although Jesus revealed the true nature of the heavenly Father in his earth life, he taught little about him. In fact, he taught only two things: that God in himself is spirit, and that, in all matters of relationship with his creatures, he is a Father. On this evening Jesus made the final pronouncement of his relationship with God when he declared: “I have come out from the Father, and I have come into the world; again, I will leave the world and go to the Father.”

169:4.12 (1857.3) But mark you! never did Jesus say, “Whoso has heard me has heard God.” But he did say,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To hear Jesus' teaching is not equivalent to knowing God, but to see Jesus is an experience which in itself is a revelation of the Father to the soul. The God of universes rules the far-flung creation, but it is the Father in heaven who sends forth his spirit to dwell within your minds.

예수는 물질적인 창조체에게 보일 수가 없는 그 분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 모습에서의 영적 렌즈이다. 그는 천상의 집단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들의 존재를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너희의 형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 개별존재의 개인적 체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느님은 영적 체험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하느님은 영적 세계의 신성한 아들에 의해서, 오직 아버지로서만, 물질적 세계들의 유한한 아들들에게 알려지실 수 있다. 너희는 영원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다; 너희는 우주들의 하느님, 모든 실존들의 무한한 창조자로서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

169:4.13 (1857.4) Jesus is the spiritual lens in human likeness which makes visible to the material creature Him who is invisible. He is your elder brother who, in the flesh, makes *known* to you a Being of infinite attributes whom not even the celestial hosts can presume fully to understand. But all of this must consist in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God who is spirit can be known only as a spiritual experience. God can be revealed to the finite sons of the material worlds, by the divine Son of the spiritual realms, only as a *Father*. You can know the Eternal as a Father; you can worship him as the God of universes, the infinite Creator of all existences.

제 170 편 하늘의 왕국

⇨ 169

유랜시아 책

17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0 편 하늘의 왕국

섹션

소개

제 1 장. 하늘의 왕국의 개념들

제 2 장.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

제 3 장. 의(義)와의 관계

제 4 장.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제 5 장. 왕국에 대한 후일 관념

PAPER 170

THE KINGDOM OF HEAVEN

SECTIONS

Introduction

1.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2.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3. In Relation to Righteousness

4. Jesus' Teaching about the Kingdom

5. Later Ideas of the Kingdom

소개

3월 11일 토요일 오후, 예수는 펠라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는 그의 대중 사명활동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이었는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전체적이면서도 완벽한 논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증여 임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느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들의 의미와 의의(意義)에 관하여 제자들은 물론 사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혼돈을 잘 알아차리고 계셨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단어가 땅의 왕국들과 현세적인 정부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현세적인 왕의 관념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에 그것을 몰아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랫동안 키워온 왕국의 개념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이 안식일 오후에 주(主)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명백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말의 다른 여러 관념들을 분명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전에 예수가 하였던 많은 말씀들을 첨부함으로써, 그리고 이 날 저녁에 토론하는 동안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었던 주의사항들을 삽입함으로써 그 설교를 더욱 자세히 설명

INTRODUCTION

170:0.1 (1858.1) SATURDAY afternoon, March 11, Jesus preached his last sermon at Pella. This was among the notable addresses of his public ministry, embracing a full and complete discus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He was aware of the confusion which existed in the minds of his apostles and disciples regard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terms “kingdom of heaven” and “kingdom of God,” which he used as interchangeable designations of his bestowal mission. Although the very term kingdom of *heaven* should have been enough to separate what it stood for from all connection with *earthly* kingdoms and temporal governments, it was not. The idea of a temporal king was too deep-rooted in the Jewish mind thus to be dislodged in a single generation. Therefore Jesus did not at first openly oppose this long-nourished concept of the kingdom.

170:0.2 (1858.2) This Sabbath afternoon the Master sought to clarify the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heaven; he discussed the subject from every viewpoint and endeavored to make clear the many different senses in which the term had been used. In this narrative we will amplify the address by adding numerous statements made by Jesus on previous occasions and by including some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후기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련되는, 그 후에 일어난 왕국 관념의 외적 현상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한다.

remarks made only to the apostles during the evening discussions of this same day. We will also make certain comments dealing with the subsequent outworking of the kingdom idea as it is related to the later Christian church.

제 1 장. 하늘의 왕국의 개념들

예수의 설교를 상술(詳述)함에 있어서, 히브리 경전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원적(二元的)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선지자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현재의 실체이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

2. 미래의 희망이다—메시아가 출현하면서 그 왕국이 충만함 속에서 실현되어질 시기.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가르쳤던 왕국 개념이다.

아주 처음부터 예수와 사도들은 이들 개념의 둘 모두를 가르쳤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왕국에 대한 또 다른 두 관념들이 있다:

3. 초자연적으로 기원되고 기적으로 세워진 범-세계적 초월적 왕국의 훗날 유대인 개념.

4. 세상이 끝날 때 선이 악을 이기고 성취하는 신성한 왕국이 설립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페르시아인 가르침들.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왕국에 대한 이 관념들을 뒤섞어 버리고 혼돈을 일으켜서, 유대인이 승리하는 시대, 하느님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는 영원한 시대, 새로운 세상, 모든 인류가 야훼를 경배하는 시대를 설립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개념에 사로잡혔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 개념들의 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생생하고 절정에 도달한 유대인 그리고 페르시아 종교의 유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들을 거쳐 오면서, 잘 납득되기도 하고 잘못 납득되기도 한 하늘의 왕국은 관념에서의 독특한 네 가지의 집단을 포용한다:

1. 유대인들의 개념.

2. 페르시아인 들의 개념

3. 예수의 개인적-체험 개념—“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

4. 그리스도교 창시자들과 선포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찾아낸, 합성되고 혼동된 개념들.

1.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170:1.1 (1858.3) In connection with the recital of Jesus' sermon it should be noted that throughout the Hebrew scriptures there was a dual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prophets presented the kingdom of God as:

170:1.2 (1858.4) 1. A present reality; and as

170:1.3 (1858.5) 2. A future hope — when the kingdom would be realized in fullness upon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is is the kingdom concept which John the Baptist taught.

170:1.4 (1858.6) From the very first Jesus and the apostles taught both of these concepts. There were two other ideas of the kingdom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170:1.5 (1858.7) 3. The later Jewish concept of a world-wide and transcendental kingdom of supernatural origin and miraculous inauguration.

170:1.6 (1858.8) 4. The Persian teachings portraying the establishment of a divine kingdom as the achievement of the triumph of good over evil at the end of the world.

170:1.7 (1858.9) Just before the advent of Jesus on earth, the Jews combined and confused all of these ideas of the kingdom into their apocalyptic concept of the Messiah's coming to establish the age of the Jewish triumph, the eternal age of God's supreme rule on earth, the new world, the era in which all mankind would worship Yahweh. In choosing to utilize this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Jesus elected to appropriate the most vital and culminating heritage of both the Jewish and Persian religions.

170:1.8 (1859.1) The kingdom of heaven, as it has been understood and misunderstood down through th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embraced four distinct groups of ideas:

170:1.9 (1859.2) 1. The concept of the Jews.

170:1.10 (1859.3) 2. The concept of the Persians.

170:1.11 (1859.4) 3. The personal-experience concept of Jesus —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170:1.12 (1859.5) 4. The composite and confused concepts which the founders and promulgators of Christianity have sought to impress upon the world.

예수는 대중을 가르치실 때에는 “왕국”에 대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념들을 제시한 듯 하였지만, 사도들에게는 항상, 왕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의 동료들과 관계에서의 사람의 개인적 체험을 포용하는 것으로서 가르쳤다. 왕국을 언급할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왕국은 너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혼동을 일으켜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

1. “왕국”의 관념을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다양한 진보적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관찰함으로써 생긴 혼동.

2.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토양으로부터 이방인의 토양으로 이주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혼동.

3.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보다 성숙된 개인에 대한 중심 관념에 관하여 형태화된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에 내재되어 있었던 혼동; 왕국 복음이 점점 더 그에 관한 종교로 바뀌어 갔다.

제 2 장.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

주(主)는 하늘의 왕국이,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진리와 그에 관계되어진 사람의 형제신분의 사실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개념으로 시작되고, 그 개념 안에 중심을 이루면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박 받아온 동물적 공포로부터 해방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의 자질이 부여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예수는 선포하였다:

1. 새로운 용기와 증강된 영적 힘을 소유하는 것. 왕국 복음은 사람을 자유에 돌려 놓았고, 그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2.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확신과 참된 위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3. 복음은 그 자체가 도덕적 가치의 새로운 표준이었으며, 인간 행위를 재는 새로운 윤리적 잣대였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결과적으로 생기는 새로운 질서의 이상을 묘사했다.

4.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교된 영적인 것의 선제적-탁월성을 가르쳤다; 영적 실체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초인간적 이상들을 드높였다.

5. 이 새로운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높이 올렸다. 인간의 일생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의 새로운 자질을 부여받았다.

170:1.13 (1859.6) At different times and in varying circumstances it appears that Jesus may have presented numerous concepts of the “kingdom” in his public teachings, but to his apostles he always taught the kingdom as embracing man’s personal experience in relation to his fellows on earth and to the Father in heaven. Concerning the kingdom, his last word always was, “The kingdom is within you.”

170:1.14 (1859.7) Centuries of confusion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term “kingdom of heaven” have been due to three factors:

170:1.15 (1859.8) 1. The confusion occasioned by observing the idea of the “kingdom” as it passed through the various progressive phases of its recasting by Jesus and his apostles.

170:1.16 (1859.9) 2. The confusion which wa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transplantation of early Christianity from a Jewish to a gentile soil.

170:1.17 (1859.10) 3. The confusion which was inherent in the fact that Christianity became a religion which was organized about the central idea of Jesus’ person; the gospel of the kingdom became more and more a religion *about* him.

2.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170:2.1 (1859.11) The Master made it clear that the kingdom of heaven must begin with, and be centered in, the dual concept of the truth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correlated fact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acceptance of such a teaching, Jesus declared, would liberate man from the age-long bondage of animal fear and at the same time enrich human living with the following endowments of the new life of spiritual liberty:

170:2.2 (1859.12) 1. The possession of new courage and augmented spiritual power. The gospel of the kingdom was to set man free and inspire him to dare to hope for eternal life.

170:2.3 (1859.13) 2. The gospel carried a message of new confidence and true consolation for all men, even for the poor.

170:2.4 (1859.14) 3. It was in itself a new standard of moral values, a new ethical yardstick wherewith to measure human conduct. It portrayed the ideal of a resultant new order of human society.

170:2.5 (1859.15) 4. It taught the pre-eminence of the spiritual compared with the material; it glorified spiritual realities and exalted superhuman ideals.

170:2.6 (1860.1) 5. This new gospel held up spiritual attainment as the true goal of living. Human life received a new endowment of moral value and divine dignity.

6. 예수는 영원한 실체란 정의로운 땅에서의 분투의 결과(보상)라고 가르치셨다. 땅에서 사람의 필사자로서의 일시적 거주가, 고귀한 운명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귀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다.

7. 인간의 구원이 하느님의 구원받은 아들들의 끝없는 봉사의 미래 운명 안에서 충족되고 실현되어질, 멀리-미치는 신성한 목적에 대한 계시임을 새로운 복음이 확인하였다.

이들 가르침은 예수가 가르치셨던 왕국에 대한, 확대된 관념을 뒤엎는다. 이 위대한 개념은 세례자 요한의 초보적이면서 혼동된 왕국 가르침들 안에는 거의 포용되지 않았다.

사도들은 왕국에 대한 주(主)의 말씀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그 후의 왜곡들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는 그 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곧 돌아와서 힘과 영광 속에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그가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집착하였던 바로 그러한 관념—에 의해,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념이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는 관념을 왕국의 설립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과 “새 시대”가 일치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이 설교 안에 체현된 큰 노력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관념에 대한 이상(理想)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주(主)는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오랫동안 가르치셨다; 이 때 그는 그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동의어인,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대신에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수는 왕국, 왕,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개념 대신에,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느님께 장엄하면서도 지능적으로 경배 드리기에 바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관념을 몹시 원하였다.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왕국에 대하여 중복된 관점을 습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여겼다:

1. 개인적 체험이자 그 다음에 참된 신자의 가슴속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는 관점, 그리고

2. 인종적 혹은 세상적 현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하는 관점; 기대할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 미래에 있는 왕국이라는 관점.

170:2.7 (1860.2) 6. Jesus taught that eternal realities were the result (reward) of righteous earthly striving. Man's mortal sojourn on earth acquired new meanings consequent upon the recognition of a noble destiny.

170:2.8 (1860.3) 7. The new gospel affirmed that human salvation is the revelation of a far-reaching divine purpose to be fulfilled and realized in the future destiny of the endless service of the salvaged sons of God.

170:2.9 (1860.4) These teachings cover the expanded idea of the kingdom which was taught by Jesus. This great concept was hardly embraced in the elementary and confused kingdom teachings of John the Baptist.

170:2.10 (1860.5) The apostles were unable to grasp the real meaning of the Master's utterances regarding the kingdom. The subsequent distortion of Jesus' teachings, as they are recorded in the New Testament, is because the concept of the gospel writers was colored by the belief that Jesus was then absent from the world for only a short time; that he would soon return to establish the kingdom in power and glory — just such an idea as they held while he was with them in the flesh. But Jesus did not connect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with the idea of his return to this world. That centuries have passed with no signs of the appearance of the “New Age” is in no way out of harmony with Jesus' teaching.

170:2.11 (1860.6) The great effort embodied in this sermon was the attempt to translate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into the ideal of the idea of doing the will of God. Long had the Master taught his followers to pr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nd at this time he earnestly sought to induce them to abandon the use of the term *kingdom of God* in favor of the more practical equivalent, *the will of God*. But he did not succeed.

170:2.12 (1860.7) Jesus desired to substitute for the idea of the kingdom, king, and subjects, the concept of the heavenly family, the heavenly Father, and the liberated sons of God engaged in joyful and voluntary service for their fellow men and in the sublime and intelligent worship of God the Father.

170:2.13 (1860.8) Up to this time the apostles had acquired a double viewpoint of the kingdom; they regarded it as:

170:2.14 (1860.9) 1.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then present in the hearts of true believers, and

170:2.15 (1860.10) 2. A question of racial or world phenomena; that the kingdom was in the future,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그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왕국이 다가오는 것을,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혹은 거자씨가 자라나는 것같은, 그러한 단계적인 발달로 보고 기대하였다. 왕국이 다가오는 것은 인종적 감각이나 혹은 세계적 감각으로 갑작스럽고도 동시에 극적인 장관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이 보다 높은 영적 삶의 본질특성을 실현하는.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면서 결코 지친 적이 없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장엄의 새롭고도 보다 높은 차원들로, 진보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면서 결코 지친 적이 없었다.

이 날 오후에 주(主)는 왕국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하십시오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치셨다:

“첫째,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사람이 진보된 윤리적 도덕적 행위성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심-없는 사랑이다.

“둘째, 하늘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믿는 필사자들의 목표인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된 곳이며, 하느님의 뜻이 더욱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수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왕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치셨다. 다양한 강연에서 그는 그 왕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다음으로 가르치셨다:

1. 신앙, 성실성.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관계의 증여를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왕국에 들어올 것;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2. 진리를 갈망함. 의를 향하여 목이 마름, 마음을 바꿈,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획득함.

예수는 죄가 어떤 결함이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에 지배된 어떤 알고있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가르치셨다. 죄에 관하여, 예수는 하느님께서 용서해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한 용서함은 우리 이웃을 우리 동료들을 용서하고 있는 행동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소용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너희가 육신 안에서 너희 형제를 용서할 때 그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저지른 나쁜 것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함의 그 실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능력을 너희 자신의 혼속에 창조한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에 관한 이야기를 쓸 무렵에, 초기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박해의 근원이었던 하느님-왕국에 대한 관념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그 말을 거의 버릴 지경이 되었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170:2.16 (1860.11) They looked upon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as a gradual development, like the leaven in the dough or like the growing of the mustard seed. They believed that the coming of the kingdom in the racial or world sense would be both sudden and spectacular. Jesus never tired of telling them that the kingdom of heaven was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realizing the higher qualities of spiritual living; that these realities of the spirit experience are progressively translated to new and higher levels of divine certainty and eternal grandeur.

170:2.17 (1860.12) On this afternoon the Master distinctly taught a new concept of the double nature of the kingdom in that he portrayed the following two phases:

170:2.18 (1860.13) “First. The kingdom of God in this world, the supreme desire to do the will of God, the unselfish love of man which yields the good fruits of improved ethical and moral conduct.

170:2.19 (1861.1) “Second.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the goal of mortal believers, the estate wherein the love for God is perfected, and wherein the will of God is done more divinely.”

170:2.20 (1861.2) Jesus taught that, by faith, the believer enters the kingdom *now*. In the various discourses he taught that two things are essential to faith-entrance into the kingdom:

170:2.21 (1861.3) 1. *Faith, sincerity*. To come as a little child, to receive the bestowal of sonship as a gift; to submit to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without questioning and in the full confidence and genuine trustfulness of the Father's wisdom; to come into the kingdom free from prejudice and preconception; to be open-minded and teachable like an unspoiled child.

170:2.22 (1861.4) 2. *Truth hunger*. The thirst for righteousness, a change of mind, the acquirement of the motive to be like God and to find God.

170:2.23 (1861.5) Jesus taught that sin is not the child of a defective nature but rather the offspring of a knowing mind dominated by an unsubmitive will. Regarding sin, he taught that God *has* forgiven; that we make such forgiveness personally available by the act of forgiving our fellows. When you forgive your brother in the flesh, you thereby create the capacity in your own soul for the reception of the reality of God's forgiveness of your own misdeeds.

170:2.24 (1861.6) By the time the Apostle John began to write the story of Jesus' life and teachings, the early Christians had experienced so much trouble with the kingdom-of-God idea as a breeder of persecution that they had largely abandoned the

많이 이야기한다. 예수는 그것을 “생명의 왕국”라고 자주 표현하였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하여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한 체험을 “아버지 하느님과 가족적인 친교”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예수는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많은 단어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한 것은; 하느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친구들, 믿는 자들의 형제관계, 사람의 형제신분, 아버지의 양 떼, 하느님의 자녀들, 충실한 자의 동료관계, 아버지의 봉사, 그리고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국 관념의 사용을 피할 수가 없었다. 5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비로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왕국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들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그리고 결정화 되어가던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해 점령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배종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제 3 장. 의(義)와의 관계

예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 앞에서 그토록 자만함으로 과시하려고 하였던 노예근성의 행위들로 인한 그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의를 신앙으로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려고 항상 노력하였다.

예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의 왕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모든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튼튼한 아들로 충만하게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올라가야 할 정의(正義)의 진보적인 계단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셨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있는 기쁨을 고찰하는 것에서 왕국의 정의가 달성되었음이 계시된다. 신앙은 하느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데 너희가 지불하는 요금이다; 그러나 용서는 너희의 신앙을 입장 요금으로 허락한 하느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왕국을 믿는 자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은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체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단계, 내적 정의(正義)의 왕국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하느님의 용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를 용서함에 따라서 그 만큼만 실제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2. 사람은 자기 동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한, 진실로 그들을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다.

3.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최고의 윤리이다.

use of the term. John talks much about the “eternal life.” Jesus often spoke of it as the “kingdom of life.” He also frequently referred to “the kingdom of God within you.” He once spoke of such an experience as “family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Jesus sought to substitute many terms for the kingdom but always without success. Among others, he used: the family of God, the Father’s will, the friends of God, the fellowship of believers, the brotherhood of man, the Father’s fold, the children of God, the fellowship of the faithful, the Father’s service, and the liberated sons of God.

170:2.25 (1861.7) But he could not escape the use of the kingdom idea. It was more than fifty years later, not until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the Roman armies, that this concept of the kingdom began to change into the cult of eternal life as its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were taken over by the rapidly expanding and crystallizing Christian church.

3. IN RELATION TO RIGHTEOUSNESS

170:3.1 (1861.8) Jesus was always trying to impress upon his apostles and disciples that they must acquire, by faith, a righteousness which would exceed the righteousness of slavish works which some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paraded so vaingloriously before the world.

170:3.2 (1861.9) Though Jesus taught that faith, simple childlike belief, is the key to the door of the kingdom, he also taught that, having entered the door, there are the progressive steps of righteousness which every believing child must ascend in order to grow up to the full stature of the robust sons of God.

170:3.3 (1861.10) It is in the consideration of the technique of *receiving* God’s forgiveness that the attainment of the righteousness of the kingdom is revealed. Faith is the price you pay for entrance into the family of God; but forgiveness is the act of God which accepts your faith as the price of admission. And the reception of the forgiveness of God by a kingdom believer involves a definite and actual experience and consists in the following four steps, the kingdom steps of inner righteousness:

170:3.4 (1862.1) 1. God’s forgiveness is made actually available and is personally experienced by man just in so far as he forgives his fellows.

170:3.5 (1862.2) 2. Man will not truly forgive his fellows unless he loves them as himself.

170:3.6 (1862.3) 3. To thu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the highest ethics.

4.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 참된 정의는 그러한 사랑의 자연적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참되기도 내적인 종교는 반드시 그리고 점점 더, 사회적인 봉사의 실천적 큰길에서 그 스스로를 현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봉사로 수고하도록 유도하는 살아있는 종교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의 자리를 윤리로 대체시키지 않았다. 종교를 원인으로 윤리를 결과로 가르치셨다.

어떤 행동의 정의로움은 그 동기로서 측정해야만 한다; 선의 가장 높은 형태는 그리하여 무의식적인 것이다. 예수는 도덕과 윤리 그 자체에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와 의 안쪽으로 그리고 영적 동료관계에 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그 자체를 사람을 향한 바깥쪽으로 그리고 사랑 넘치는 봉사로써,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시하였다. 그는 왕국의 종교는 진정한 개인적 체험이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담아놓을 없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는 믿는 자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의식은, 가족 행위 곧, 형제신분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는 노력 안에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율의 실천으로 피할 수 없게 이끌어 준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왕국의 종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그 열매, 그 결과는 가족적이며 사회적이다. 예수는 공동체에 대비하여 개별존재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사람의 성격이 사심-없는 봉사를 통하여 개발된다는 것과; 사람이 이웃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펼친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였다.

개별존재를 드높임으로서, 그와 함께 그 안에 왕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는 남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그 안에서 참된 사회적 정의(正義)의 새로운 섭리시대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계층을 세상이 잘 알지 못한 것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원칙들을 실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이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때, 그것은 사회적 물질적 상태가 증진되는 것으로만 현시되는 것이 아니라, 증진된 인간관계들과 진보된 영적 달성을 이루면서 다가오는 시대의 특징인, 증진되고 확대된 영적 가치들의 영광 안으로 현시될 것이다.

제 4 장.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는 왕국에 대한 정밀하게 정의하신 적이 없다. 한 번은 왕국의 한 위상을 강연하고, 또 다른 때에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하느님 통치하의 형제신분에 대한 다른 측면을 토의하고자 하였다. 이 안식일 오후 설교 도중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왕국의 다섯 가지 상태 또는 신(新)시대에 대하여

170:3.7 (1862.4) 4. Moral conduct, true righteousness, becomes, then, the natural result of such love.

170:3.8 (1862.5) It therefore is evident that the true and inner religion of the kingdom unfailingly and increasingly tends to manifest itself in practical avenues of social service. Jesus taught a living religion that impelled its believers to engage in the doing of loving service. But Jesus did not put ethics in the place of religion. He taught religion as a cause and ethics as a result.

170:3.9 (1862.6) The righteousness of any act must be measured by the motive; the highest forms of good are therefore unconscious. Jesus was never concerned with morals or ethics as such. He was wholly concerned with that inward and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which so certainly and directly manifests itself as outward and loving service for man. He taught that the religion of the kingdom is a genuine personal experience which no man can contain within himself; that the consciousness of being a member of the family of believers leads inevitably to the practice of the precepts of the family conduct, the service of one'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effort to enhance and enlarge the brotherhood.

170:3.10 (1862.7) The religion of the kingdom is personal, individual; the fruits, the results, are familial, social. Jesus never failed to exalt the sacredness of the individual as contrasted with the community. But he also recognized that man develops his character by unselfish service; that he unfolds his moral nature in loving relations with his fellows.

170:3.11 (1862.8) By teaching that the kingdom is within, by exalting the individual, Jesus struck the deathblow of the old society in that he ushered in the new dispensation of true social righteousness. This new order of society the world has little known because it has refused to practice the principl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en this kingdom of spiritual pre-eminence does come upon the earth, it will not be manifested in mere improved social and material conditions, but rather in the glories of those enhanced and enriched spiritual valu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age of improved human relations and advancing spiritual attainments.

4. JESUS' TEACHING ABOUT THE KINGDOM

170:4.1 (1862.9) Jesus never gave a precise definition of the kingdom. At one time he would discourse on one phase of the kingdom, and at another time he would discuss a different aspect of the brotherhood of God's reign in the hearts of men. In the course of this Sabbath afternoon's sermon

언급하였는데:

1. 개별존재 믿는 자가 개인적 그리고 안쪽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가지는 동료관계의 영적 삶의 체험.

2. 복음을 믿는 자들의 확대되는 형제신분, 믿는 자들 각 개별존재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통치한 결과로 생기는 증진된 도덕과 촉진된 윤리의 사회적인 양상들.

3.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안에 널리 퍼져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들의 초월사자 형제신분, 하느님의 초인간적 왕국.

4. 하느님의 뜻에 대한 더욱 완전한 충족의 전망, 증진된 영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여명(黎明)—사람의 다음 시대—를 향한 전진.

5. 충만함 안에 있는 왕국, 땅에서의 빛과 생명의 미래 영적 시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主)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다섯 가지 상태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主)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바뀌는 사람 의지의 이러한 진행과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가엘과 그의 연관-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진화, 사회와 다른 여러 가지의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主)는 왕국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1. 각 개별존재에 대한 우선.
2. 사람의 체험 속에서 결정 요소로서의 의지.
3. 하느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
4.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만족들.
5. 인간 개인성 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초월성.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예수가 원적으로 세우신 이 힘이 넘치는 관념들과 신성한 이상들을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살피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왕국에 대한 관념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진화의 계층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 모두에서 갑자기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주기적 변화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육신화한 아들로써 예수가 자신을 증여한 것은 것처럼 세상의 영적 일생에서 이상하고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었다. 왕국의 시대적 현시활동을 찾으면서, 너희 자신의 혼과 함께 혼 안에서 왕국을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 오

Jesus noted no less than five phases, or epochs, of the kingdom, and they were:

170:4.2 (1862.10) 1. The personal and inward experience of the spiritual life of the fellowship of the individual believer with God the Father.

170:4.3 (1863.1) 2. The enlarging brotherhood of gospel believers, the social aspects of the enhanced morals and quickened ethics resulting from the reign of God's spirit in the hearts of individual believers.

170:4.4 (1863.2) 3. The supermortal brotherhood of invisible spiritual beings which prevails on earth and in heaven, the superhuman kingdom of God.

170:4.5 (1863.3) 4. The prospect of the more perfect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the advance toward the dawn of a new social order in connection with improved spiritual living — the next age of man.

170:4.6 (1863.4) 5. The kingdom in its fullness, the future spiritual age of light and life on earth.

170:4.7 (1863.5) Wherefore must we always examine the Master's teaching to ascertain which of these five phases he may have reference to when he makes use of the term kingdom of heaven. By this process of gradually changing man's will and thus affecting human decisions, Michael and his associates are likewise gradually but certainly changing the entire course of human evolution, social and otherwise.

170:4.8 (1863.6) The Master on this occasion placed emphasis on the following five points as representing the cardinal featur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 170:4.9 (1863.7) 1. The pre-eminence of the individual.
- 170:4.10 (1863.8) 2. The will as the determining factor in man's experience.
- 170:4.11 (1863.9) 3. Spiritual fellowship with God the Father.
- 170:4.12 (1863.10) 4. The supreme satisfactions of the loving service of man.
- 170:4.13 (1863.11) 5. The transcendency of the spiritual over the material in human personality.

170:4.14 (1863.12) This world has never seriously or sincerely or honestly tried out these dynamic ideas and divine ideals of Jesus' doctrine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you should not become discouraged by the apparently slow progress of the kingdom idea on Urantia. Remember that the order of progressive evolution is subjected to sudden and unexpected periodical changes in both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worlds. The bestowal of Jesus as an incarnated Son was just such a strange and unexpected event in the spiritual life of the world. Neither make the fatal mistake, in looking for the age manifestation of the kingdom, of

류를 범하지 말라.

예수가 비록 왕국의 한 위상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건이 세상의 위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틀림없이 유란시아로 돌아오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을지라도, 이 두 가지 관념을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장차 언젠가 이 땅에 왕국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언젠가 이 세상에 개인으로써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약속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들을 매우 확실하게 연결시켰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왕국이 현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미래의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약속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비약하여 결론을 내렸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주(主)가 왕국을 그 충만함으로 그리고 힘과 영광과 함께 세우기 위하여 그가 즉각적으로 두 번째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계승되는 믿음을 가진 세대들은, 영감을 주면서 한편 실망이 되는 그 희망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다.

제 5 장. 왕국에 대한 후일 관념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들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왕국의 개념에 덧붙여지고 그리고 다가 올 세대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러한 왕국에 대한 예언적 예측에서 떠 오르는 특정한 후일의 관념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세기 동안 하늘의 왕국에 대한 관념은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그리스 이상주의 생각,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개념—현세(現世)는 영원한 세계의 시간적 그림자—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토양으로 옮겨 심겨지는 일을 이룩한 위대한 걸음은, 왕국의 메시아가 교회의 해방자,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이 필로의 관념들과 선과 악에 대한 페르시아 교리로서 보충시킨, 그러한 그들의 활동으로 성장을 이룩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체의 해방자가 되어가면서 이루어졌다.

왕국 복음의 가르침 속에 체현되었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선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왜곡시킴에 따라서, 그 실현에 거의 실패하였다.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개념

failing to effect its establishment within your own souls.

170:4.15 (1863.13) Although Jesus referred one phase of the kingdom to the future and did, on numerous occasions, intimate that such an event might appear as a part of a world crisis; and though he did likewise most certainly, on several occasions, definitely promise sometime to return to Urantia, it should be recorded that he never positively linked these two ideas together. He promised a new revelation of the kingdom on earth and at some future time; he also promised sometime to come back to this world in person; but he did not say that these two events were synonymous. From all we know these promises may, or may not, refer to the same event.

170:4.16 (1863.14) His apostles and disciples most certainly linked these two teachings together. When the kingdom failed to materialize as they had expected, recalling the Master's teaching concerning a future kingdom and remembering his promise to come again, they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promises referred to an identical event; and therefore they lived in hope of his immediate second coming to establish the kingdom in its fullness and with power and glory. And so have successive believing generations lived on earth entertaining the same inspiring but disappointing hope.

5. LATER IDEAS OF THE KINGDOM

170:5.1 (1864.1) Having summarized the teachings of Jesu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permitted to narrate certain later ideas which became attached to the concept of the kingdom and to engage in a prophetic forecast of the kingdom as it may evolve in the age to come.

170:5.2 (1864.2) Throughout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ristian propaganda, the idea of the kingdom of heaven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then rapidly spreading notions of Greek idealism, the idea of the natural as the shadow of the spiritual — the temporal as the time shadow of the eternal.

170:5.3 (1864.3) But the great step which marked the transplantation of the teachings of Jesus from a Jewish to a gentile soil was taken when the Messiah of the kingdom became the Redeemer of the church, a religious and social organization growing out of the activities of Paul and his successors and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as they were supplemented by the ideas of Philo and the Persian doctrines of good and evil.

170:5.4 (1864.4) The ideas and ideals of Jesus, embodied in the t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nearly failed of realization as his followers progressively distorted his

은 두 가지의 큰 경향들에 의해 눈에 띄게 수정되었다:

1.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간주하기를 고집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곧 실제로 돌아와서 전 세계적인 다소간의 현세적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2. 이방 그리스도교인들이 바울의 교리들을 매우 일찍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교리들은 예수가 교회에서의 자녀들의 구세주라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점차 인도하였으며, 왕국의 순수하게 영적 형제신분의 초기 개념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대신하였다.

왕국의 사회적 생성물로서의 교회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었으며 오히려 바람직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교회로 인한 해악은 교회의 실존이 아니라, 교회가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개념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다. 바울이 조직한 교회가 예수가 선포한 하늘의 왕국의 사실상 대용품이 되었다.

그러나 주(主)가 가르친 그 하늘의 왕국이 믿는 자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는 물론, 땅위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 종족들, 국가들에서도—모든 개별존재에 이르기까지—선포되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가 가르친 왕국, 개별적 의로움의 영적 이상과 하느님과 사람간의 신성한 동료관계 개념은 예수라는 개인을 구세주-창조자, 그리고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로 여기는 신화적 개념 속으로 점차 잠겨버렸다.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이-지배하는 왕국의 형제신분을 이런 식으로 대치해 버렸다.

교회는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서 생긴 필연적이며 유익한 사회적 결과였다; 왕국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회적 반응이 예수가 가르치시고 또 그 대로 사신 실제 왕국의 영적 개념을 너무도 충분히 대치해 버렸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으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예수께 있어서 그 왕국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로써 하느님의 뜻에 그들의 전심어린 전념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사람의 영적 형제신분의 일원이 된 각 개별존재들의 총합이었다.

주(主)는 왕국 복음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결과들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바람직한 사회적 현시활동들이 신자들 각자의 이 내적(內的)인 개인적 체험, 모든 신자들 속에 있으면서 그

pronouncements. The Master's concept of the kingdom was notably modified by two great tendencies:

170:5.5 (1864.5) 1. The Jewish believers persisted in regarding him as the *Messiah*. They believed that Jesus would very soon return actually to establish the world-wide and more or less material kingdom.

170:5.6 (1864.6) 2. The gentile Christians began very early to accept the doctrines of Paul, which led increasingly to the general belief that Jesus was the *Redeemer* of the children of the church, the new and institutional successor of the earlier concept of the purely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kingdom.

170:5.7 (1864.7) The church, as a social outgrowth of the kingdom, would have been wholly natural and even desirable. The evil of the church was not its existence, but rather that it almost completely supplanted the Jesus concept of the kingdom. Paul's institutionalized church became a virtual substitute for the kingdom of heaven which Jesus had proclaimed.

170:5.8 (1864.8) But doubt not, this same kingdom of heaven which the Master taught exists within the heart of the believer, will yet be proclaimed to this Christian church, even as to all other religions, races, and nations on earth — even to every individual.

170:5.9 (1864.9) The kingdom of Jesus' teaching, the spiritual ideal of individual righteousness and the concept of man's divine fellowship with God, became gradually submerged into the mystic conception of the person of Jesus as the Redeemer-Creator and spiritual head of a socialized religious community. In this way a formal and institutional church became the substitute for the individually spirit-led brotherhood of the kingdom.

170:5.10 (1864.10) The church was an inevitable and useful *social* result of Jesus' life and teachings; the tragedy consisted in the fact that this social reaction to the teachings of the kingdom so fully displaced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real kingdom as Jesus taught and lived it.

170:5.11 (1865.1) The kingdom, to the Jews, was the Israelite *community*; to the gentiles it became the Christian *church*. To Jesus the kingdom was the sum of those *individuals* who had confessed their faith in the fatherhood of God, thereby declaring their wholehearted dedication to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thus becoming members of the spiritual brotherhood of man.

170:5.12 (1865.2) The Master fully realized that certain social results would appear in the world as a consequence of the spread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he intended that all such desirable social manifestations should appear as

들을 활성화하는 신성한 영과 가지는 순수하게 영적 동료관계와 교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부산물, 또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기를 그는 바라셨다.

예수는 어떤 사회적 조직 또는 교회가 참된 영적 왕국의 진보를 뒤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 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예식을 실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진리를 사랑하는 혼, 의를 위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영적 왕국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수는 가르치셨으며; 사도들은 같은 시간에, 신자는 세례라는 외적인 예식을 통하여 제자들의 사회적인 조직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다.

예수를 직접 따랐던 자들이 각각의 믿는 자에 대한 영의 지배와 인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개념을 실현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왕국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 대신에 가시적인 사회적 조직, 그리스도교 교회를 점차 조성해 감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구해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대치 계획을 완수하였을 때, 왕국의 사실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왕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지위가 안정 되자마자 곧, 왕국은 그리스도교가 절정에 이를 때,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시는 때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왕국이 하나의 시대적인 개념, 미래에 도래한다는 개념, 그리고 지고자의 성자(聖者)들에 대한 최종적 대속의 관념이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체현된 아버지-아들의 관념을 일반적으로 잃어버렸으며, 반면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잘 조직된 사회적 친교로 대치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대부분이 사회적 형제신분이 되었으며, 영적 형제신분에 대한 예수의 개념과 이상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였다.

예수의 이상적인 개념은 크게 실패하였지만, 주(主)의 개인적 일생과 가르침의 기초 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개념을 덧붙이고, 영적인 것에 대비된 현세적인 것에 대한 필로의 교리를 증강시켜서, 바울은 유란시아에 존재하였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간 단체를 세워 나갔다,

예수의 개념은 세상의 앞선 종교들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가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의도하였던 상태—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아주 확실히 다다를 상태—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간적으로

unconscious and inevitable outgrowths, or natural fruits, of this inner personal experience of individual believers, this purely spiritual fellowship and communion with the divine spirit which indwells and activates all such believers.

170:5.13 (1865.3) Jesus foresaw that a social organization, or church, would follow the progress of the true spiritual kingdom, and that is why he never opposed the apostles' practicing the rite of John's baptism. He taught that the truth-loving soul, the one who hungers and thirsts for righteousness, for God, is admitted by faith to the spiritual kingdom; at the same time the apostles taught that such a believer is admitted to the social organization of disciples by the outward rite of baptism.

170:5.14 (1865.4) When Jesus' immediate followers recognized their partial failure to realize his idea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in the hearts of men by the spirit's domination and guidance of the individual believer, they set about to save his teaching from being wholly lost by substituting for the Master's ideal of the kingdom the gradual creation of a visible social organization, the Christian church. And when they had accomplished this program of substitution,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and to provide for the recognition of the Master's teaching regarding the fact of the kingdom, they proceeded to set the kingdom off into the future. The church, just as soon as it was well established, began to teach that the kingdom was in reality to appear at the culmination of the Christian age,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170:5.15 (1865.5) In this manner the kingdom became the concept of an age, the idea of a future visitation, and the ideal of the final redemption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The early Christians (and all too many of the later ones) generally lost sight of the Father-and-son idea embodied in Jesus' teaching of the kingdom, while they substituted therefor the well-organized social fellowship of the church. The church thus became in the main a *social* brotherhood which effectively displaced Jesus' concept and ideal of a *spiritual* brotherhood.

170:5.16 (1865.6) Jesus' ideal concept largely failed, but upon the foundation of the Master's personal life and teachings, supplemented by the Greek and Persian concepts of eternal life and augmented by Philo's doctrine of the temporal contrasted with the spiritual, Paul went forth to build up one of the most progressive human societies which has ever existed on Urantia.

170:5.17 (1865.7) The concept of Jesus is still alive in the advanced religions of the world. Paul's Christian church is the socialized and humanized shadow of what Jesus intended the kingdom of heaven to be — and what it most certainly will yet

만들어진 그림자이다.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별존재에서 교회로 옮겼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왕국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의 개별 신자의 형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바울과 그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자신과 개별 신자에 관하여 지녔던 모든 영적 암시를, 믿는 자들 무리로서의 교회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개별 신자의 가슴속에 있는 신성한 왕국이라는 예수의 개념에 치명적(致命的)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교회는 큰 낭패를 체험하였는데, 그것은 신비한 힘들과 특권들, 오직 예수와 그의 믿는 영적 형제들 사이에서만 체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특권들에 대한 소유권을 교회가 감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의 회원이 왕국에서의 친교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이다.

조만간에 세례자 요한 보다 더 위대한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이것은 왕국은 믿는 자의 가슴속에서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예수의 높은 영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선포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예상되는 재림을 어떤 방법으로도 언급하지 않고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예수의 실제적 가르침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러한 새로운 진술은 미가엘이 이 땅에 머무른 사실성에 대하여 사회-철학적 믿음의 체계를 창조하려 했던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일을 무효로 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예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의 가르침이 예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거의 대체해 버렸다. 이러한 길로 흐르면서 하나의 역사적 종교가, 예수가 그 속에서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관념과 영적 이상들을 미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고상한 희망—영원한 생명—과 조화시키셨던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대신하여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이 왕국의 복음이었다.

몇 세기도 못 되어서, 그의 가르침들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하던 생도들이 그토록 많은 예배종파들과 분파들로 나누인 것은 순전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분열은 주(主)의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일생의 신성한 단일성에 대한 주(主)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분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지적 이해와 해석, 심지어는 사회화에서의 다양한 등급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 형제 신분의 결여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는 것이다.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언제까지나 열매

become. Paul and his successors partly transferred the issues of eternal life from the individual to the church. Christ thus became the head of the church rather than the elder brother of each individual believer in the Father's family of the kingdom. Paul and his contemporaries applied all of Jesus' spiritual implications regarding himself and the individual believer to the *church* as a group of believers; and in doing this, they struck a deathblow to Jesus' concept of the divine kingdom in the heart of the individual believer.

170:5.18 (1866.1) And so, for centuries, the Christian church has labored under great embarrassment because it dared to lay claim to those mysterious powers and privileges of the kingdom, powers and privileges which can be exercised and experienced only between Jesus and his spiritual believer brothers. And thus it becomes apparent that membership in the church does not necessarily mean fellowship in the kingdom; one is spiritual, the other mainly social.

170:5.19 (1866.2) Sooner or later another and greater John the Baptist is due to arise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 meaning a return to the high spiritual concept of Jesus, who proclaimed that the kingdom is the will of his heavenly Father dominant and transcendent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 and doing all this without in any way referring either to the visible church on earth or to the anticipated second coming of Christ. There must come a revival of the *actual* teachings of Jesus, such a restatement as will undo the work of his early followers who went about to create a sociophilosophical system of belief regarding the *fact* of Michael's sojourn on earth. In a short time the teaching of this story *about* Jesus nearly supplanted the preaching of Jesus' gospel of the kingdom. In this way a historical religion displaced that teaching in which Jesus had blended man's highest moral ideas and spiritual ideals with man's most sublime hope for the future — eternal life. And that was the gospel of the kingdom.

170:5.20 (1866.3) It is just because the gospel of Jesus was so many-sided that within a few centuries students of the records of his teachings became divided up into so many cults and sects. This pitiful subdivision of Christian believers results from failure to discern in the Master's manifold teachings the divine oneness of his matchless life. But someday the true believers in Jesus will not be thus spiritually divided in their attitude before unbelievers. Always we may have diversity of intellectual comprehension and interpretation, even varying degrees of socialization, but lack of spiritual brotherhood is both inexcusable and reprehensible.

170:5.21 (1866.4) Mistake not! there is in the teachings of Jesus an eternal nature which will not permit

를 맺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가 착상하였던 왕국은 대체로 이 땅에서 실패하였고; 한동안, 밖으로 내세우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해 왔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오직 가로누워 좌절된 영적 왕국의 애벌레 단계이고, 이 물질적 시대를 거쳐 그것을 날라서 보다 영적 섭리시대로 옮겨줄 것이며, 거기서 주(主)의 가르침은 발전을 위한 더욱 충만한 기회를 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 안에서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이 현재 잠들어 있는 고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신성한 형제신분의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마치 나비가 털 매력적인 창조체에서의 탈바꿈하는 발전으로 아름다운 전개에 따라서 것처럼 결국에는 창발하는 것이 분명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오랜 침잠으로부터 결국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솟아날 것이다.

them forever to remain unfruitful in the hearts of thinking men. The kingdom as Jesus conceived it has to a large extent failed on earth; for the time being, an outward church has taken its place; but you should comprehend that this church is only the larval stage of the thwarted spiritual kingdom, which will carry it through this material age and over into a more spiritual dispensation where the Master's teachings may enjoy a fuller opportunity for development. Thus does the so-called Christian church become the cocoon in which the kingdom of Jesus' concept now slumbers. The kingdom of the divine brotherhood is still alive and will eventually and certainly come forth from this long submergence, just as surely as the butterfly eventually emerges as the beautiful unfolding of its less attractive creature of metamorphic development.

제 171 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 170

유랜시아 책

17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1 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색션

소개

- 제 1 장. 펠라를 떠남
- 제 2 장. 비용 계산에 대하여
- 제 3 장. 페레아 여행
- 제 4 장. 리비아스에서 가르침
- 제 5 장. 여리고의 맹인
- 제 6 장. 삭개오를 방문하심
- 제 7 장. “예수가 지나가시면서”
- 제 8 장. 파운드의 비유

PAPER 171

ON THE WAY 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 1. The Departure from Pella
- 2. On Counting the Cost
- 3. The Perean Tour
- 4. Teaching at Livias
- 5. The Blind Man at Jericho
- 6. The Visit to Zaccheus
- 7. “As Jesus Passed By”
- 8. Parable of the Pounds

소개

잊히지 않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설교가 있던 다음 날, 예수는 내일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도중에 페레아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왕국에 관한 설교와 유월절에 참석하려고 한다는 발표는 모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 최극위의 현세적인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가 왕국의 비물질적인 성격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였을지라도,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어떤 국가적 정부를 세우실 것이라는 관념을 전혀 지울 수는 없었다.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가 말씀하였던 것은 그저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을 혼동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主)의 강연에 의하여 깨우쳐졌다. 영도자들은 내적인 왕국, “너희 안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납득하기는 하였지만, 그들도 주(主)가 다른 미

INTRODUCTION

171:0.1 (1867.1) THE day after the memorable sermon on “The Kingdom of Heaven,” Jesus announced that on the following day he and the apostles would depart for the Passover at Jerusalem, visiting numerous cities in southern Perea on the way.

171:0.2 (1867.2) The address on the kingdom and the announcement that he was going to the Passover set all his followers to thinking that he was going up to Jerusalem to inaugurate the temporal kingdom of Jewish supremacy. No matter what Jesus said about the nonmaterial character of the kingdom, he could not wholly remove from the minds of his Jewish hearers the idea that the Messiah was to establish some kind of nationalistic government with headquarters at Jerusalem.

171:0.3 (1867.3) What Jesus said in his Sabbath sermon only tended to confuse the majority of his followers; very few were enlightened by the Master's discourse. The leaders understood something of his teachings regarding the inner kingdom,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you,” but

래의 왕국을 전에 말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주(主)가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였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끝자 그대로 파괴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희망에 매달렸고, 주(主)가 곧 다시 이 세상에 큰 힘과 장엄한 영광과 함께 와서 약속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사도인 두 아들과 함께 동양의 군주에게 나아가는 듯한 태도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자기가 요청하려는 것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主)는 약속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녀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하였다. “주(主)여, 당신은 이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저의 이 아들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어서, 당신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왼쪽 편에 앉도록 미리 저에게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는, “여인이여, 너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찾고자 하는 두 사도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했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알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의 집에서 내가 살았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안드레가 너희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희 어머니가 내게 비밀리에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고, 이와 같은 보기 흉한 요청을 하도록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 주(主)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려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슬퍼지며; 너희가 내 왕국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니 내 가슴이 아프며;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내게 이런 요청을 하도록 하니 내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가슴속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정말 나의 쓴 잔을 마실 것이며 나의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영예는 내 아버지께서 선정하실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 때 어떤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보다 먼저 발탁되고자 한 것과, 자기들 어머니와 함께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하였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는 그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말씀하였다. “이방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이 어떻게 권한을 부리는지를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될 자가 있다면, 먼저

they also knew that he had spoken about another and future kingdom, and it was this kingdom they believed he was now going up to Jerusalem to establish. When they were disappointed in this expectation, when he was rejected by the Jews, and later on, when Jerusalem was literally destroyed, they still clung to this hope, sincerely believing that the Master would soon return to the world in great power and majestic glory to establish the promised kingdom.

171:0.4 (1867.4) It was on this Sunday afternoon that Salome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Zebedee came to Jesus with her two apostle sons and, in the manner of approaching an Oriental potentate, sought to have Jesus promise in advance to grant whatever request she might make. But the Master would not promise; instead, he asked her,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n answered Salome: “Master, now that you are going up to Jerusalem to establish the kingdom, I would ask you in advance to promise me that these my sons shall have honor with you, the one to sit on your right hand and the other to sit on your left hand in your kingdom.”

171:0.5 (1867.5) When Jesus heard Salome's request, he said: “Woman, you know not what you ask.” And then, looking straight into the eyes of the two honor-seeking apostles, he said: “Because I have long known and loved you; because I have even lived in your mother's house; because Andrew has assigned you to be with me at all times; therefore do you permit your mother to come to me secretly, making this unseemly request. But let me ask you: Are you able to drink the cup I am about to drink?” And without a moment for thought, James and John answered, “Yes, Master, we are able.” Said Jesus: “I am saddened that you know not why we go up to Jerusalem; I am grieved that you understand not the nature of my kingdom; I am disappointed that you bring your mother to make this request of me; but I know you love me in your hearts; therefore I declare that you shall indeed drink of my cup of bitterness and share in my humiliation, but to sit on my right hand and on my left hand is not mine to give. Such honors are reserved for those who have been designated by my Father.”

171:0.6 (1868.1) By this time someone had carried word of this conference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nd they were highly indignant that James and John would seek to be preferred before them, and that they would secretly go with their mother to make such a request. When they fell to arguing among themselves, Jesus called them all together and said: “You well understand how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ir subjects, and how those who are great exercise authority. But it shall not be so in the kingdom of

그가 너희의 하인이 되게 하라. 왕국에서 첫째가 될 자가 너희의 사명활동자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건대, 사람의 아들은 사명활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활동자로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버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기도하기 각자 물러갔다. 그 날 저녁, 베드로가 애를 쓴 결과, 야고보와 요한이 열 명의 사도들 앞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였으며 형제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오른 쪽과 왼 쪽 자리를 요구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한 달도 못되어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쪽에는 죽어 가는 강도 다른 쪽에는 다른 죄인과 함께 로마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의 어머니는 그곳에 있었고, 펠라에서 예수께 사도인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게 추구했던 명예를 어리석게 간청했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제 1 장. 펠라를 떠남

3월 13일 월요일 아침나절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펠라 야영지를 아주 떠나게 되었으며, 아브너와 그의 연관-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페레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70인을 방문하면서 두 주간 이상을 보낸 후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주(主)가 펠라를 떠나실 무렵, 사도들과 함께 야영지에 같이 있었던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여리고로 가는 요단강 길에서 예수가 헤스본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비용을 계산하라.”는 주(主)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무리들의 반 정도가 그를 떠났다. 나머지 반 정도의 무리들은 페레아 남쪽 성읍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두 주 동안 그를 따라왔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펠라의 야영지가 포기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주(主)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다윗의 왕권을 요구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였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다른 개념을 결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주(主)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윗 세베대는 3월 15일 수요일, 펠라에 있는 방문자용 야영지를 철수하였다. 이 무렵 거의 4,000명이나 되는 방문자들이 기거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의 야영지라고 알려진 곳에, 예수와 열 두 사도들과 함께 내려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와 12사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갔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heaven. Whos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let him first become your servant. He who would be first in the kingdom, let him become your minister. I declare to you that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to but to minister; and I now go up to Jerusalem to lay down my life in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and in the service of my brethren.” When the apostles heard these words,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pray. That evening, in response to the labors of Peter, James and John made suitable apologies to the ten and were restored to the good graces of their brethren.

171:0.7 (1868.2) In asking for places on the right hand and on the left hand of Jesus at Jerusalem, the sons of Zebedee little realized that in less than one month their beloved teacher would be hanging on a Roman cross with a dying thief on one side and another transgressor on the other side. And their mother, who was present at the crucifixion, well remembered the foolish request she had made of Jesus at Pella regarding the honors she so unwisely sought for her apostle sons.

1. THE DEPARTURE FROM PELLA

171:1.1 (1868.3) On the forenoon of Monday, March 13, Jesus and his twelve apostles took final leave of the Pella encampment, starting south on their tour of the cities of southern Perea, where Abner's associates were at work. They spent more than two weeks visiting among the seventy and then went directly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171:1.2 (1868.4) When the Master left Pella, the disciples encamped with the apostles, about one thousand in number, followed after him. About one half of this group left him at the Jordan ford on the road to Jericho when they learned he was going over to Heshbon, and after he had preached the sermon on “Counting the Cost.” They went on up to Jerusalem, while the other half followed him for two weeks, visiting the towns in southern Perea.

171:1.3 (1868.5) In a general way, most of Jesus' immediate followers understood that the camp at Pella had been abandoned, but they really thought this indicated that their Master at last intended to go to Jerusalem and lay claim to David's throne. A large majority of his followers never were able to grasp any other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 no matter what he taught them, they would not give up this Jewish idea of the kingdom.

171:1.4 (1868.6)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the Apostle Andrew, David Zebedee closed the visitors' camp at Pella on Wednesday, March 15. At this time almost four thousand visitors were in residence, and this does not include the one thousand and more persons who sojourned with the apostles at what was known as the teachers' camp, and who went south with Jesus and the

무척 싫어하였지만, 모든 장비를 많은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후에 가롯 유다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비극적인 마지막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십자가형 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벳세다로 돌아갔다. 예수와 사도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의 부활 이후로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아주 심하게 흥분하였다. 안드레는 다윗에게 메신저 봉사를 중지하라고 지도하였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왕국(王國)이 곧 설립되려는 표시라고 해석하였다. 다윗은 스스로 할 일이 없어졌고, 그의 분개와 걱정의 대상이었던 나사로가 이육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피신하게 되자 그의 자아-임명한 보호자가 될 것을 독단적으로 결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 부활 이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시기에, 다윗은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곧 필라델피아로 떠나갔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남은 일생을 보냈는데, 아브너가 살아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그들의 본부를 두었던 그 왕국의 많은 이익금을 모두 관리하는 재정 감독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안디옥은 바울과 그리스도교의 본부가 되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아브너와 하늘의 왕국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에 관한 바울과의 해석이 안디옥으로부터 서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아브너와 해석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필라델피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이 사자들이 갑자기 흥성한 이슬람에게 압도(壓倒)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2 장. 비용 계산에 대하여

예수와 거의 1,000명에 이르는 따르는 사람들이 한 때 베다바라고 불렸던 요단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머뭇거리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는 아주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강연을 전하였다. 주(主)는 말씀했다:

“너희가 이 후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봉헌하는 값을 기꺼이 치려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자매들을

twelve. Much as David disliked to do it, he sold the entire equipment to numerous buyers and proceeded with the funds to Jerusalem, subsequently turning the money over to Judas Iscariot.

171:1.5 (1869.1) David was present in Jerusalem during the tragic last week, taking his mother back with him to Bethsaida after the crucifixion. While awaiting Jesus and the apostles, David stopped with Lazarus at Bethany and became tremendously agit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Pharisees had begun to persecute and harass him since his resurrection. Andrew had directed David to discontinue the messenger service; and this was construed by all as an indication of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at Jerusalem. David found himself without a job, and he had about decided to become the self-appointed defender of Lazarus when presently the object of his indignant solicitude fled in haste to Philadelphia. Accordingly, sometime after the resurrection and also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David betook himself to Philadelphia, having first assisted Martha and Mary in disposing of their real estate; and there, in association with Abner and Lazarus, he spent the remainder of his life, becoming the financial overseer of all those large interests of the kingdom which had their center at Philadelphia during the lifetime of Abner.

171:1.6 (1869.2) Within a short time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tioch became the headquarters of *Pauline Christianity*, while Philadelphia remained the center of the *Abnerian kingdom of heaven*. From Antioch the Pauline version of the teachings of Jesus and about Jesus spread to all the Western world; from Philadelphia the missionaries of the Abnerian version of the kingdom of heaven spread throughout Mesopotamia and Arabia until the later times when these uncompromising emissaries of the teachings of Jesus were overwhelmed by the sudden rise of Islam.

2. ON COUNTING THE COST

171:2.1 (1869.3) When Jesus and the company of almost one thousand followers arrived at the Bethany ford of the Jordan sometimes called Bethabara, his disciples began to realize that he was not going directly to Jerusalem. While they hesitated and debated among themselves, Jesus climbed upon a huge stone and delivered that discourse which has become known as “Counting the Cost.” The Master said:

171:2.2 (1869.4) “You who would follow after me from this time on, must be willing to pay the price of wholehearted dedication to the doing of my Father’s will. If you would be my disciples, you must be willing to forsake father, mother, wife,

기꺼이 버려야만 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겠다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너희가 길을 더 가기 전에, 각자 앉아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 땅에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너희들 중에 누가 있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기초를 놓은 후에, 시작은 하였지만 완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의 이웃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비웃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완결할 수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일 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만 명의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상의를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 왕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적에 대항할 만큼 잘 제공할 수가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리의 뒤를 따라, 가르침을 듣고 또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부서뜨리는 실망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가슴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하였다면,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거부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기어질 때, 너희가 현시적으로 얻어야만 하는 외적 승리에 대하여,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지금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너희가 만일 세속적으로 마음먹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양념은 쓸모가 없어서; 오직 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만일 준비된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는 열 두 사도들을 데리고 헤스본 쪽으로 떠났으며, 5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절반의 다른 군중들은 잠시 지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들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If any one of you would now be my disciple, you must be willing to give up even your life just as the Son of Man is about to offer up his life for the completion of the mission of doing the Father's will on earth and in the flesh.

171:2.3 (1869.5) “If you are not willing to pay the full price, you can hardly be my disciple. Before you go further, you should each sit down and count the cost of being my disciple. Which one of you would undertake to build a watchtower on your lands without first sitting down to count up the cost to see whether you had money enough to complete it? If you fail thus to reckon the cost, after you have laid the foundation, you may discover that you are unable to finish that which you have begun, and therefore will all your neighbors mock you, saying, ‘Behold, this man began to build but was unable to finish his work.’ Again, what king, when he prepares to make war upon another king, does not first sit down and take counsel as to whether he will be able, with ten thousand men, to meet him who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If the king cannot afford to meet his enemy because he is unprepared, he sends an embassy to this other king, even when he is yet a great way off, asking for terms of peace.

171:2.4 (1879.1) “Now, then, must each of you sit down and count the cost of being my disciple. From now on you will not be able to follow after us, listening to the teaching and beholding the works; you will be required to face bitter persecutions and to bear witness for this gospel in the face of crushing disappointment. If you are unwilling to renounce all that you are and to dedicate all that you have, then are you unworthy to be my disciple. If you have already conquered yourself within your own heart, you need have no fear of that outward victory which you must presently gain when the Son of Man is rejected by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and is given into the hands of mocking unbelievers.

171:2.5 (1879.2) “Now should you examine yourself to find out your motive for being my disciple. If you seek honor and glory, if you are worldly minded, you are like the salt when it has lost its savor. And when that which is valued for its saltiness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shall it be seasoned? Such a condiment is useless; it is fit only to be cast out among the refuse. Now have I warned you to turn back to your homes in peace if you are not willing to drink with me the cup which is being prepared. Again and again have I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but you will not believe me.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what I say.”

171:2.6 (1879.3) Immediately after speaking these words, Jesus, leading the twelve, started off on the way to Heshbon, followed by about five hundred. After a brief delay the other half of the multitude

은 수제자들과 함께 이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잠시 동안의 역경과 시험이 있는 후에,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들의 희망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왕국이 분명히 세워지리라는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제 3 장. 페레아 여행

예수와 열 두 사도들, 그리고 따라오는 수 백 명의 제자들은 두 주 이상 페레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70인이 일하고 있는 모든 성읍들을 방문하였다.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으며,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왕국 메신저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예수는 헤스본에서 아브너를 만났으며, 안드레는 유월절 축제 때문에 70인의 사명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하였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완벽하게 무시하고 메신저들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또한 그는 아브너에게 여자대원들이 원한다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아브너가 육신 속에 계신 주(主)를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주(主)는 아브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의 아들이, 나는 네가 왕국에 충실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납득하도록 네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는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며, 그리하여 예수가 유월절을 위하여 올라가시기까지 따르는 자들이 매일 매일 줄어들이어서 200명 미만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을 깨달았다. 산헤드린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알렸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에 알려야 한다고 지도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였을 때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강한 두려움으로부터, 묵묵히 확인하는 이러한 태도로의 변화는 주로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순간이 되면, 예수가 신성한 힘을 나타내시고 그의 적들에게 모욕을 주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주(主)의 영적 최극위에 대한 그들의 보다 깊고 성숙된 신앙에 연결되어, 그가 죽어야만 한다는 산헤드린의 공개적인 선포에 직면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준비가 된, 그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밖으로 보여준 용기의 원인이 되었다.

사도들 대부분과 많은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went on up to Jerusalem. His apostles, together with the leading disciples, thought much about these words, but still they clung to the belief that, after this brief period of adversity and trial, the kingdom would certainly be set up somewhat in accordance with their long-cherished hopes.

3. THE PEREAN TOUR

^{171:3.1 (1870.4)} For more than two weeks Jesus and the twelve, followed by a crowd of several hundred disciples, journeyed about in southern Perea, visiting all of the towns wherein the seventy labored. Many gentiles lived in this region, and since few were going up to the Passover feast at Jerusalem,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went right on with their work of teaching and preaching.

^{171:3.2 (1870.5)} Jesus met Abner at Heshbon, and Andrew directed that the labors of the seventy should not be interrupted by the Passover feast; Jesus advised that the messengers should go forward with their work in complete disregard of what was about to happen at Jerusalem. He also counseled Abner to permit the women's corps, at least such as desired, to go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And this was the last time Abner ever saw Jesus in the flesh. His farewell to Abner was: "My son, I know you will be true to the kingdom, and I pray the Father to grant you wisdom that you may love and understand your brethren."

^{171:3.3 (1870.6)} As they traveled from city to city, large numbers of their followers deserted to go on to Jerusalem so that, by the time Jesus started for the Passover, the number of those who followed along with him day by day had dwindled to less than two hundred.

^{171:3.4 (1871.1)} The apostles understood that Jesus was going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They knew that the Sanhedrin had broadcast a message to all Israel that he had been condemned to die and directing that anyone knowing his whereabouts should inform the Sanhedrin; and yet, despite all this, they were not so alarmed as they had been when he had announced to them in Philadelphia that he was going to Bethany to see Lazarus. This change of attitude from that of intense fear to a state of hushed expectancy was mostly because of Lazarus's resurrection. They ha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Jesus might, in an emergency, assert his divine power and put to shame his enemies. This hope, coupled with their more profound and mature faith in the spiritual supremacy of their Master, accounted for the outward courage displayed by his immediate followers, who now made ready to follow him into Jerusalem in the very face of the open declaration of the Sanhedrin that he must die.

^{171:3.5 (1871.2)}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and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었고, 그를 불멸의 존재로 그리고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은 존재로 간주하였다.

제 4 장. 리비아스에서 가르침

3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페레아 남쪽 지방의 도시들에 대한 그들의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스에서 야영을 하였다. 시몬 켈로페와 시몬 베드로는 100개 이상의 검을 그들의 손으로 넘겨 받기로 공모하고, 이 무기들을 받은 후에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외투 밑에 감추어 착용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날 밤 리비아스에서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主)가 그 정원에서 배반을 당한 그 밤까지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예수는 안드레를 부르셨다. “네 형제들을 깨워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는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못기로 지니고 있는 그 검에 관해 알고 계셨지만, 자기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숨겼다. 안드레가 연관-동료들을 깨웠고,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시간에 필요할만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육신적인 불확실한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들과 시험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따로 불러낸 것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함이다.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종교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를 재판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채찍질할 것이며, 결국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당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주의하고 기억하라.”

사도들은 또 다시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나;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주(主)가 말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 땅에서의 현재적 왕국 때문에 너무 눈이 멀어 있었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主)가 무슨 의미로 그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였는지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감히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자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당황한 사도들은 그의 죽음 후에야 주(主)가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many of his inner disciples did not believe it possible for Jesus to die; they, believing that he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regarded him as immortal and already triumphant over death.

4. TEACHING AT LIVIAS

171:4.1 (1871.3) On Wednesday evening, March 29, Jesus and his followers encamped at Livias on their way to Jerusalem, after having completed their tour of the cities of southern Perea. It was during this night at Livias that Simon Zelotes and Simon Peter, having conspired to have delivered into their hands at this place more than one hundred swords, received and distributed these arms to all who would accept them and wear them concealed beneath their cloaks. Simon Peter was still wearing his sword on the night of the Master's betrayal in the garden.

171:4.2 (1871.4) Early on Thursday morning before the others were awake, Jesus called Andrew and said: “Awaken your brethren! I have something to say to them.” Jesus knew about the swords and which of his apostles had received and were wearing these weapons, but he never disclosed to them that he knew such things. When Andrew had aroused his associates, and they had assembled off by themselves, Jesus said: “My children, you have been with me a long while, and I have taught you much that is needful for this time, but I would now warn you not to put your trust in the uncertainties of the flesh nor in the frailties of man's defense against the trials and testing which lie ahead of us. I have called you apart here by yourselves that I may once more plainly tell you that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where you know the Son of Man has already been condemned to death. Again am I telling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religious rulers; that they will condemn him and then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And so will they mock the Son of Man, even spit upon him and scourge him, and they will deliver him up to death. And when they kill the Son of Man, be not dismayed, for I declare that on the third day he shall rise. Take heed to yourselves and remember that I have forewarned you.”

171:4.3 (1871.5) Again were the apostles amazed, stunned; but they could not bring themselves to regard his words as literal; they could not comprehend that the Master meant just what he said. They were so blinded by their persistent belief in the temporal kingdom on earth, with headquarters at Jerusalem, that they simply could not — would not — permit themselves to accept Jesus' words as literal. They pondered all that day as to what the Master could mean by such strange pronouncements. But none of them dared to ask

형을 예견하면서 분명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 하였던 사실이 실현된 것으로 깨어났다.

어떤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아침식사 직후에 예수께로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바로 이 리비아스에서였다. “이 곳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이 도망가실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나사로의 부활로 놀라고 무서워진 헤롯은, 산헤드린이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를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든지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후자 쪽을 실제로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를 강제로 죽이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 예수는 말씀했다; “나는 헤롯을 잘 알고, 왕국 복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받고 우두머리 사제들의 손에 죽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는 세례자 요한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서도,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페레아에서 전파하고, 내일은 유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땅에서의 그의 임무가 완전해 질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 사람의 아들도 인간의 편협성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과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로 희생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도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러 번 보려고 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때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 날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혼동되고 당황한 무리의 신자들이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관련하여 예수가 선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만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임박한 패배에 대한 경고를 파악해 보려는 지경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예수가 “셋째

him a question concerning these statements. Not until after his death did these bewildered apostles wake up to the realization that the Master had spoken to them plainly and directly in anticipation of his crucifixion.

171:4.4 (1872.1) It was here at Livias, just after breakfast, that certain friendly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Flee in haste from these parts, for Herod, just as he sought John, now seeks to kill you. He fears an uprising of the people and has decided to kill you. We bring you this warning that you may escape.”

171:4.5 (1872.2) And this was partly true. The resurrection of Lazarus frightened and alarmed Herod, and knowing that the Sanhedrin had dared to condemn Jesus, even in advance of a trial, Herod made up his mind either to kill Jesus or to drive him out of his domains. He really desired to do the latter since he so feared him that he hoped he would not be compelled to execute him.

171:4.6 (1872.3) When Jesus heard what the Pharisees had to say, he replied: “I well know about Herod and his fear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But, mistake not, he would much prefer that the Son of Man go up to Jerusalem to suffer and die at the hands of the chief priests; he is not anxious, having stained his hands with the blood of John, to becom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on of Man. Go you and tell that fox that the Son of Man preaches in Perea today, tomorrow goes into Judea, and after a few days, will be perfected in his mission on earth and prepared to ascend to the Father.”

171:4.7 (1872.4) Then turning to his apostles, Jesus said: “From olden times the prophets have perished in Jerusalem, and it is only befitting that the Son of Man should go up to the city of the Father’s house to be offered up as the price of human bigotry and as the result of religious prejudice and spiritual blindness. O Jerusalem, Jerusalem, which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e teachers of truth!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even as a hen gathers her own brood under her wings, but you would not let me do it! Behold, your house is about to be left to you desolate! You will many times desire to see me, but you shall not. You will then seek but not find me.” And when he had spoken, he turned to those around him and said: “Nevertheless, let us go up to Jerusalem to attend the Passover and do that which becomes us in fulfill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71:4.8 (1872.5) It was a confused and bewildered group of believers who this day followed Jesus into Jericho. The apostles could discern only the certain note of final triumph in Jesus’ declarations regarding the kingdom; they just could not bring themselves to that place where they were willing to

날에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 종교 영도자들과의 사소하고 불쾌한 임시적 논쟁이 있는 직후에 있을 그 왕국의 확실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당장에” 또는 “얼마 있다가 곧”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 예수가 “일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왕국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이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대인들은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그의 일생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죽음으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반면에, 이러한 괴로운 중여 기간 동안 주(主)를 격려해 준 것은 변화에 대한 기억이었다.

제 5 장. 여리고의 맹인

3월 30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200여 명의 따르는 무리들 앞에 서서, 여리고 성벽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거지 떼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눈이 먼 바티메우스라 하는 노인이 있었다. 눈이 먼 이 거지는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들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장님 요시아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베다니에 갔을 때에서야 예수가 지난번에 여리고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티메우스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다시는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예수가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알려지자, 수 백 명의 주민들이 그를 만나려고 몰려나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主)를 호위하면서 도시로 다시 돌아올 때, 바티메우스는 군중들의 큰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기 드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서,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거지들 중의 하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가 가까이에서 계시다는 말을 들은 바티메우스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예수, 예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치자, 예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꾸짖으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예수는 그 장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조용히 서 계셨다. 그를 보시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말씀하였다.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자 그들이 바티메우스에게 가서 말했다; “기운을 내고; 우리와 함께 가자. 주(主)가 너를 부르신

grasp the warnings of the impending setback. When Jesus spoke of “rising on the third day,” they seized upon this statement as signifying a sure triumph of the kingdom immediately following an unpleasant preliminary skirmish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 “third day” was a common Jewish expression signifying “presently” or “soon thereafter.” When Jesus spoke of “rising,” they thought he referred to the “rising of the kingdom.”

171:4.9 (1872:6) Jesus had been accepted by these believers as the Messiah, and the Jews knew little or nothing about a suffering Messiah.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Jesus was to accomplish many things by his death which could never have been achieved by his life. While it was the resurrection of Lazarus that nerved the apostles to enter Jerusalem, it was the memory of the transfiguration that sustained the Master at this trying period of his bestowal.

5. THE BLIND MAN AT JERICO

171:5.1 (1873:1) Late on the afternoon of Thursday, March 30, Jesus and his apostles, at the head of a band of about two hundred followers, approached the walls of Jericho. As they came near the gate of the city, they encountered a throng of beggars, among them one Bartimeus, an elderly man who had been blind from his youth. This blind beggar had heard much about Jesus and knew all about his healing of the blind Josiah at Jerusalem. He had not known of Jesus' last visit to Jericho until he had gone on to Bethany. Bartimeus had resolved that he would never again allow Jesus to visit Jericho without appealing to him for the restoration of his sight.

171:5.2 (1873:2) News of Jesus' approach had been heralded throughout Jericho, and hundreds of the inhabitants flocked forth to meet him. When this great crowd came back escorting the Master into the city, Bartimeus, hearing the heavy tramping of the multitude, knew that something unusual was happening, and so he asked those standing near him what was going on. And one of the beggars replied,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When Bartimeus heard that Jesus was near, he lifted up his voice and began to cry aloud, “Jesus, Jesus, have mercy upon me!” And as he continued to cry louder and louder, some of those near to Jesus went over and rebuked him, requesting him to hold his peace; but it was of no avail; he cried only the more and the louder.

171:5.3 (1873:3) When Jesus heard the blind man crying out, he stood still. And when he saw him, he said to his friends, “Bring the man to me.” And then they went over to Bartimeus, saying: “Be of good cheer; come with us, for the Master calls for you.” When Bartimeus heard these words, he

다.” 바티메우스는 이 말을 듣고, 외투를 벗어 던진 채로 길 한 가운데로 뛰쳐나갔으며,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려갔다. 바티메우스를 가리키시며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장님은 대답하였다.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 간청을 들으시자 그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니;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는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 곁에 남아서, 계속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다음 날 주(主)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 그는 군중들 앞에 먼저 가면서 어떻게 하여 그가 예리고에서 다시 보게 되었는지를 큰 소리로 외쳤다.

제 6 장. 삭개오를 방문하심

주(主)를 따르는 행렬이 예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으며, 주(主)는 그 날 밤을 그곳에서 머물고자 하였다. 예수가 세관 옆을 지나가게 되자, 세무장인 세금 징수원 삭개오는 어찌다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몹시 보고 싶어 하였다. 이 세무장은 매우 부자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예리고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따라서, 삭개오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고, 그의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 머리 위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리 장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그 도시 한 가운데에 이를 때까지 무리를 뒤쫓아 갔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가 그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시려한다고 생각하고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 있는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시는 주(主)를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대로, 예수는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며 급히 내려왔으며, 예수께로 가서 주(主)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즉시 삭개오의 집으로 갔으며, 예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세무장과 함께 있기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무척 놀랐다. 주(主)와 사도들이 삭개오와 함께 아직 그의 문 앞에 있을 때, 예리고의 바리새인 하나가 가까이 서서 말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자기 백성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배반자인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가 이를 듣고 삭개오를 내려다 보시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의자 위에서서 말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세리이며 죄인이지만, 위대한 선생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시려고 왔으며; 그가 들어

threw aside his cloak, springing forward toward the center of the road, while those near by guided him to Jesus. Addressing Bartimeus, Jesus sai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Then answered the blind man, “I would have my sight restored.” And when Jesus heard this request and saw his faith, he said: “You shall receive your sight;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he remained near Jesus, glorifying God, until the Master started on the next day for Jerusalem, and then he went before the multitude declaring to all how his sight had been restored in Jericho.

6. THE VISIT TO ZACCHEUS

171:6.1 (1873.4) When the Master's procession entered Jericho, it was nearing sundown, and he was minded to abide there for the night. As Jesus passed by the customs house, Zaccheus the chief publican, or tax collector, happened to be present, and he much desired to see Jesus. This chief publican was very rich and had heard much about this prophet of Galilee. He had resolved that he would see what sort of a man Jesus was the next time he chanced to visit Jericho; accordingly, Zaccheus sought to press through the crowd, but it was too great, and being short of stature, he could not see over their heads. And so the chief publican followed on with the crowd until they came near the center of the city and not far from where he lived. When he saw that he would be unable to penetrate the crowd, and thinking that Jesus might be going right on through the city without stopping,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whose spreading branches overhung the roadway. He knew that in this way he could obtain a good view of the Master as he passed by. And he was not disappointed, for, as Jesus passed by, he stopped and, looking up at Zaccheus, said: “Make haste, Zaccheus, and come down, for tonight I must abide at your house.” And when Zaccheus heard these astonishing words, he almost fell out of the tree in his haste to get down, and going up to Jesus, he expressed great joy that the Master should be willing to stop at his house.

171:6.2 (1874.1) They went at once to the home of Zaccheus, and those who lived in Jericho were much surprised that Jesus would consent to abide with the chief publican. Even while the Master and his apostles lingered with Zaccheus before the door of his house, one of the Jericho Pharisees, standing near by, said: “You see how this man has gone to lodge with a sinner, an apostate son of Abraham who is an extortioner and a robber of his own people.” And when Jesus heard this, he looked down at Zaccheus and smiled. Then Zaccheus stood upon a stool and said: “Men of Jericho, hear me! I may be a publican and a

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아무에게나 그릇되게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느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가 말씀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가는 “강도들의 길”로 올라갔다.

제 7 장. “예수가 지나가시면서”

예수는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의 연관-동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항상 감탄하였다. 너희는 자선을 육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애심은 사랑함으로-포화를 이룬 혼에서 발산되는 우애심의 향기이다.

선(善)은 존중을 피할 수 없게 하지만, 자애로움이 결여되면 애정을 쫓아낸다. 선(善)은 자애로울 때에만 보편적으로 마음을 끌어 당긴다. 선(善)은 오직 마음을 끌어 당길 때에만 효력이 있다.

예수는 사람을 정말로 납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연민을 현시하였다. 그러나 동정심에 빠지신 적은 드물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동정심은 실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고통을 잘 아심으로 해서 무관심하게 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자아-연민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통 받는 혼들을 돌보실 수 있었다.

예수는 사람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사랑하였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다. 그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다. 그가 그러한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사람의 가슴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충분히 아셨다—때문이었다. 그는 흥미를 가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노련하게 감지하였으며,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지 현명하게 간파하였다.

예수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지나가시면서” 연관-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

sinner, but the great Teacher has come to abide in my house; and before he goes in, I tell you that I am going to bestow one half of all my goods upon the poor, and beginning tomorrow, if I have wrongfully exacted aught from any man, I will restore fourfold. I am going to seek salvation with all my heart and learn to do righteousness in the sight of God.”

171:6.3 (1874.2) When Zaccheus had ceased speaking, Jesus said: “Today has salvation come to this home, and you have become indeed a son of Abraham.” And turning to the crowd assembled about them, Jesus said: “And marvel not at what I say nor take offense at what we do, for I have all along declared that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is lost.”

171:6.4 (1874.3) They lodged with Zaccheus for the night. On the morrow they arose and made their way up the “road of robbers” to Bethany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at Jerusalem.

7. “AS JESUS PASSED BY”

171:7.1 (1874.4) Jesus spread good cheer everywhere he went. H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His associates never ceased to wonder at the gracious words that proceeded out of his mouth. You can cultivate gracefulness, but graciousness is the aroma of friendliness which emanates from a love-saturated soul.

171:7.2 (1874.5) Goodness always compels respect, but when it is devoid of grace, it often repels affection. Goodness is universally attractive only when it is gracious. Goodness is effective only when it is attractive.

171:7.3 (1874.6) Jesus really understood men; therefore could he manifest genuine sympathy and show sincere compassion. But he seldom indulged in pity. While his compassion was boundless, his sympathy was practical, personal, and constructive. Never did his familiarity with suffering breed indifference, and he was able to minister to distressed souls without increasing their self-pity.

171:7.4 (1874.7) Jesus could help men so much because he loved them so sincerely. He truly loved each man, each woman, and each child. He could be such a true friend because of his remarkable insight — he knew so fully what was in the heart and in the mind of man. He was an interested and keen observer. He was an expert in the comprehension of human need, clever in detecting human longings.

171:7.5 (1874.8) Jesus was never in a hurry. He had time to comfort his fellow men “as he passed by.” And he always made his friends feel at ease. He

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경탄할 만큼 잘 들었다. 연관-동료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하는 법이 없었다. 굶주린 영들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들을 돌보실 때, 그의 자비를 받은 자들은 그에게 참회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와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主)가 자신들을 너무나도 깊이 믿으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졌다.

그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고 캐물으시는 것처럼 보이신 적이 없었으며, 지도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태도를 현시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자아-확신과 강한 용기를 고취시켜 주었다. 그가 미소를 지으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예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였으므로, 단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는 종종 도움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착수했다.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보다 선한 본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주(主)는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써 병 고침을 얻고자 하였던 여인의 조잡한 미신적 행위 속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분간하실 수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사람, 심지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보살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설교를 중단하고 군중들을 기다리게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지나가시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主)의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된 것이거나 또는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생을 영위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건강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뿌려 주었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어느 시대이든지 주(主)를 따르는 자들은 “지나가면서” 섬기는 것—일상적인 자기 의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제 8 장. 파운드의 비유

지난밤에 예수가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야 여리고를 떠났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들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잠시 멈추었고, 한편 군중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올리브 산에서 묵으시려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갔다.

was a charming listener. He never engaged in the meddlesome probing of the souls of his associates. As he comforted hungry minds and ministered to thirsty souls, the recipients of his mercy did not so much feel that they were confessing to him as that they were conferring *with* him. They had unbounded confidence in him because they saw he had so much faith in them.

171:7.6 (1875.1) He never seemed to be curious about people, and he never manifested a desire to direct, manage, or follow them up. He inspired profound self-confidence and robust courage in all who enjoyed his association. When he smiled on a man, that mortal experienced increased capacity for solving his manifold problems.

171:7.7 (1875.2) Jesus loved men so much and so wisely that he never hesitated to be severe with them when the occasion demanded such discipline. He frequently set out to help a person by asking for help. In this way he elicited interest, appealed to the better things in human nature.

171:7.8 (1875.3) The Master could discern saving faith in the gross superstition of the woman who sought healing by touching the hem of his garment. He was always ready and willing to stop a sermon or detain a multitude while he ministered to the needs of a single person, even to a little child. Great things happened not only because people had faith in Jesus, but also because Jesus had so much faith in them.

171:7.9 (1875.4) Most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which Jesus said or did seemed to happen casually, “as he passed by.” There was so little of the professional, the well-planned, or the premeditated in the Master’s earthly ministry. He dispensed health and scattered happiness naturally and gracefully as he journeyed through life. It was literally true, “He went about doing good.”

171:7.10 (1875.5) And it behooves the Master’s followers in all ages to learn to minister as “they pass by” — to do unselfish good as they go about their daily duties.

8. PARABLE OF THE POUNDS

171:8.1 (1875.6) They did not start from Jericho until near noon since they sat up late the night before while Jesus taught Zaccheus and his family the gospel of the kingdom. About halfway up the ascending road to Bethany the party paused for lunch while the multitude passed on to Jerusalem, not knowing that Jesus and the apostles were going to abide that night on the Mount of Olives.

모든 제자들을 위해 예정되었던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파운드에 관한 비유는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유대 왕국에 대한 주권을 지배하고자 하였던 아켈라우스의 चेहरे와 그의 헛된 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예수의 비유들 중에서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들이 아켈라우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우스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까웠으며, 그의 수로(水路)가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출발하였던 그 길을 따라 나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영주가 한 왕국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으나,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가슴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하였던 그의 영지(領地)에 있는 시민들이 그에게 한 대사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돌아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 왕이 현재의 통치를 거부당한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통치를 거부당한 것이다. 내가 다시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아들이 그의 백성들의 영적 통치를 수여 받았었다면, 그는 사람들의 혼의 그러한 왕국을 받아들여 왔을 것이고, 인간 가슴의 그러한 영토를 다스려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의 영적 통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금 거부되고 있는 그러한 영의 왕국을 다른 사람들로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사람의 아들이 거부되는 것을 볼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거부하는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드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그 귀족처럼, 나도 열 두 하인들,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불러서, 너희 각자의 손에 한 파운드씩을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내가 돌아와 너희에게 요구되는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너희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아들이 이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보내졌으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의 청지기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이고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청지기들이 같이 불러가서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나아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의 파운드로 그에 보태어 열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主)가 그에게 대답했다; ‘잘하였다; 너는 이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는 착한 하인이다. 내가 너에게 열 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가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게 맡겨주신 당신의 파운드로 다섯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主)는, ‘그에 따라서

171:8.2 (1875.7) The parable of the pounds, unlike the parable of the talents, which was intended for all the disciples, was spoken more exclusively to the apostles and was large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Archelaus and his futile attempt to gain the rule of the kingdom of Judea. This is one of the few parables of the Master to be founded on an actual historic character. It was not strange that they should have had Archelaus in mind inasmuch as the house of Zaccheus in Jericho was very near the ornate palace of Archelaus, and his aqueduct ran along the road by which they had departed from Jericho.

171:8.3 (1875.8) Said Jesus: “You think that the Son of Man goes up to Jerusalem to receive a kingdom, but I declare that you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Do you not remember about a certain prince who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but even before he could return, the citizens of his province, who in their hearts had already rejected him, sent an embassy after him, saying, ‘We will not have this man to reign over us’? As this king was rejected in the temporal rule, so is the Son of Man to be rejected in the spiritual rule. Again I declare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but if the Son of Man had been accorded the spiritual rule of his people, he would have accepted such a kingdom of men’s souls and would have reigned over such a dominion of human hearts. Notwithstanding that they reject my spiritual rule over them, I will return again to receive from others such a kingdom of spirit as is now denied m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rejected now, but in another age that which the children of Abraham now reject will be received and exalted.

171:8.4 (1876.1) “And now, as the rejected nobleman of this parable, I would call before me my twelve servants, special stewards, and giving into each of your hands the sum of one pound, I would admonish each to heed well my instructions that you trade diligently with your trust fund while I am away that you may have wherewith to justify your stewardship when I return, when a reckoning shall be required of you.

171:8.5 (1876.2) “And even if this rejected Son should not return, another Son will be sent to receive this kingdom, and this Son will then send for all of you to receive your report of stewardship and to be made glad by your gains.

171:8.6 (1876.3) “And when these stewards were subsequently called together for an accounting, the first came forward, saying, ‘Lord, with your pound I have made ten pounds more.’ And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you are a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proved faithful in this matter, I will give you authority over ten cities.’ And the second came, saying, ‘Your pound left with me, Lord, has made five pounds.’ And the master

내가 다섯 도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계산을 하고 마지막 하인의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파운드가 있는데, 제가 형짚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찾으시는 것을 보았기에 이치에 따르는 분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主)가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하인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명백하게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하라고 네게 요구할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적어도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합당한 이자라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게으른 하인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열 파운드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은 이미 열 파운드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로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비유의 의미와 지난 번의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직, "이 말들을 가슴속에 잘 생각해 보고, 각자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아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능력은 일생의 기회들에 대한 실천적인 척도이다. 너희 힘을 벗어난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2. 신실함은 인간 신뢰감 발산의 오차없는 척도이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모든 것에서 그 자신의 자질과 일치되어 똑같은 신실함을 보일 것이다.

3. 주(主)는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게 신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4. 그는 기회가 적었을 때에는 충실함만큼 같은 보상을 주신다.

그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후에, 길옆에 있는 머리위로 걸쳐져 있는 바위 그늘 아래에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시며 활기찬 존엄성과 품위 있는 장엄함으로 말씀했다; "자, 나의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리하면 하늘에

said, 'I will accordingly make you ruler over five cities.' And so on down through the others until the last of the servants, on being called to account, reported: 'Lord, behold, here is your pound, which I have kept safely done up in this napkin. And this I did because I feared you; I believed that you were unreasonable, seeing that you take up where you have not laid down, and that you seek to reap where you have not sown.' Then said his lord: 'You negligent and unfaithful servant, I will judge you out of your own mouth. You knew that I reap where I have apparently not sown; therefore you knew this reckoning would be required of you. Knowing this, you should have at least given my money to the banker that at my coming I might have had it with proper interest.'

171:8.7 (1876.4) "And then said this ruler to those who stood by: 'Take the money from this slothful servant and give it to him who has ten pounds.' And when they reminded the master that such a one already had ten pounds, he said: 'To every one who has shall be given more, but from him who has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171:8.8 (1876.5) And then the apostles sough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this parable and that of the former parable of the talents, but Jesus would only say, in answer to their many questions: "Ponder well these words in your hearts while each of you finds out their true meaning."

171:8.9 (1876.6) It was Nathaniel who so well taught the meaning of these two parables in the after years, summing up his teachings in these conclusions:

171:8.10 (1876.7) 1. Ability is the practical measure of life's opportunities. You will never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complishment of that which is beyond your abilities.

171:8.11 (1876.8) 2. Faithfulness is the unerring measure of human trustworthiness. He who is faithful in little things is also likely to exhibit faithfulness in everything consistent with his endowments.

171:8.12 (1876.9) 3. The Master grants the lesser reward for lesser faithfulness when there is like opportunity.

171:8.13 (1877.1) 4. He grants a like reward for like faithfulness when there is lesser opportunity.

171:8.14 (1877.2) When they had finished their lunch, and after the multitude of followers had gone on toward Jerusalem, Jesus, standing there before the apostles in the shade of an overhanging rock by the roadside, with cheerful dignity and a gracious majesty pointed his finger westward, saying: "Come, my brethren, let us go on into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육신 가운데에서의 주(主)의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Jerusalem, there to receive that which awaits us; thus shall we fulfill the will of the heavenly Father in all things.”

171:8.15 (1877.3) And so Jesus and his apostles resumed this, the Master's last journey to Jerusalem in the likeness of the flesh of mortal man.

제 172 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 171

유랜시아 책

17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2 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섹션

소개

제 1 장. 베다니에서의 안식일

제 2 장. 일요일 아침에 사도들과 함께

제 3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제 4 장. 성전 근처를 방문

제 5 장. 사도들의 태도

PAPER 172

GOING INTO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Sabbath at Bethany

2. Sunday Morning with the Apostles

3. The Start for Jerusalem

4. Visiting about the Temple

5. The Apostles' Attitude

소개

예수와 사도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일같이 올라왔으므로,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 그 작은 마을을 지도하고 있으며 믿는 자인 이웃 주민 시몬의 집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음을 예수께 알렸다.

그 날 저녁, 많은 방문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으며, 베다니와 벳바게의 서민들은 그가 환영받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산헤드린의 사형 선고에 공공연히 반항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베다니 가족들—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은 주(主)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더 잘 깨닫고 있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그의 이번 방문이 아마도 마지막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우두머리 사제들은 예수가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그의 친구들 속에 계실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아셨으나, 장

INTRODUCTION

172:0.1 (1878.1) JESUS and the apostles arrived at Bethany shortly after four o'clock on Friday afternoon, March 31, A.D. 30. Lazarus, his sisters, and their friends were expecting them; and since so many people came every day to talk with Lazarus about his resurrection, Jesus was informed that arrangements had been made for him to stay with a neighboring believer, one Simon, the leading citizen of the little village since the death of Lazarus's father.

172:0.2 (1878.2) That evening, Jesus received many visitors, and the common folks of Bethany and Bethpage did their best to make him feel welcome. Although many thought Jesus was now going into Jerusalem, in utter defiance of the Sanhedrin's decree of death, to proclaim himself king of the Jews, the Bethany family — Lazarus, Martha, and Mary — more fully realized that the Master was not that kind of a king; they dimly felt that this might be his last visit to Jerusalem and Bethany.

172:0.3 (1878.3) The chief priests were informed that Jesus lodged at Bethany, but they thought best not to attempt to seize him among his friends; they decided to await his coming on into Jerusalem. Jesus knew about all this, but he was majestically calm; his friends had never seen him more

엄하게 침착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그토록 차분하고 기분이 좋으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도들조차도 산헤드린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요구하였을 때 그가 그토록 태연한 것에 매우 놀랐다. 그 날 밤 주(主)가 주무시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짝이 되어 그를 지켰으며, 그들 대부분은 칼을 차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수 백 명의 순례자들 때문에 잠이 깨었는데, 그들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와 예수를 만나려고 왔던 것이다.

제 1 장. 베다니에서의 안식일

유대 땅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온 순례자들과, 유대인 당국자들은 모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축제에 참석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좋아하였지만, 우두머리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소 난처해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였지만, 그의 대담성 때문에 조금 당황하였다; 그가 전에 베다니를 방문하였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과, 예수의 적들에게 나사로가 큰 문젯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도착을 축하하는 대중 연회에 베다니와 벳바게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하여 베풀어졌으며, 산헤드린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되었다. 마르다는 음식 시중드는 일을 지도하였고; 그녀의 자매인 마리아는 대중 연회에 여자들이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경하는 여자들 속에 있었다.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체포하는 것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옛날 사람 여호수아에 관하여 시몬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리고에 들어왔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였다. 예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전설에 대하여 예수는, “나는 벽돌과 돌맹이로 지은 그런 성벽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이러한 설교를 함으로써 편견과 자아-정의로움 그리고 증오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모든 사도들이 평상시와는 달리 침착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회가 매우 즐겁게 그리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수는 유난히 기뻐하였으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노쳤다.

잔치가 끝날 무렵까지 어무 것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끝날 때가 가까이 되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여인 구경꾼들의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걸어나와, 주민석에 비스듬히 앉아 계신 예수께로 가서, 매우 귀

composed and congenial; even the apostles were astounded that he should be so unconcerned when the Sanhedrin had called upon all Jewry to deliver him into their hands. While the Master slept that night, the apostles watched over him by twos, and many of them were girded with swords. Early the next morning they were awakened by hundreds of pilgrims who came out from Jerusalem, even on the Sabbath day, to see Jesus and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1. SABBATH AT BETHANY

172:1.1 (1878.4) Pilgrims from outside of Judea, as well as the Jewish authorities, had all been asking: “What do you think? will Jesus come up to the feast?” Therefore, when the people heard that Jesus was at Bethany, they were glad, but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were somewhat perplexed. They were pleased to have him under their jurisdiction, but they were a trifle disconcerted by his boldness; they remembered that on his previous visit to Bethany, Lazar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Lazarus was becoming a big problem to the enemies of Jesus.

172:1.2 (1878.5)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on the evening after the Sabbath, all Bethany and Bethpage joined in celebrating the arrival of Jesus by a public banquet at the home of Simon. This supper was in honor of both Jesus and Lazarus; it was tendered in defiance of the Sanhedrin. Martha directed the serving of the food; her sister Mary was among the women onlookers as it was against the custom of the Jews for a woman to sit at a public banquet. The agents of the Sanhedrin were present, but they feared to apprehend Jesus in the midst of his friends.

172:1.3 (1879.1) Jesus talked with Simon about Joshua of old, whose namesake he was, and recited how Joshua and the Israelites had come up to Jerusalem through Jericho. In commenting on the legend of the walls of Jericho falling down, Jesus said: “I am not concerned with such walls of brick and stone; but I would cause the walls of prejudice, self-righteousness, and hate to crumble before this preaching of the Father’s love for all men.”

172:1.4 (1879.2) The banquet went along in a very cheerful and normal manner except that all the apostles were unusually sober. Jesus was exceptionally cheerful and had been playing with the children up to the time of coming to the table.

172:1.5 (1879.3)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ppened until near the close of the feasting when Mary the sister of Lazarus stepped forward from among the group of women onlookers and, going up to where Jesus reclined as the guest of honor, proceeded to

하고 비싼 향유가 들어 있는 엘러베스터 유리 단지를 열었다; 주(主)의 머리에 바른 뒤에, 그녀는 그것을 그의 발에 붓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그것으로 그것들을 닦아 내었다. 온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놀라게 되었다.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 중의 몇몇이 것처럼 비싼 향유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분개하는 빛을 보이면서, 중얼거렸을 때, 가롯 유다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 향료가 팔려서 가난한 자를 먹이도록 증여되는 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주(主)께 말씀드려서 그러한 낭비를 꾸짖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했다; “너희는 모두 이 여인을 가만두라. 너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에 대하여 그녀에게 불편함을 가지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투덜거린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적당하면 어느 때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여인은 장사지낼 내 육신을 위하여 이 향유를 오랫동안 간직해 왔으며, 이제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상하여 이 기름을 부은 것이니, 이 여인에게만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하여, 내가 죽을 것이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는 내 말에 대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너희 모두를 꾸짖은 것이다. 이 여인은 오늘밤에 한 행동에 대하여 꾸지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녀를 기억하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야기될 것임을 말하고 싶다.”

가롯 유다가 개인적 책망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그가 자기의 상한 기분을 위하여 양값을 찾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달랠던 것이 바로 이 꾸지람이었다. 그는 그러한 관념들을 무의식중에 여러 번 떠올렸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사악한 생각을 공공연히 그리고 의식 중에 감히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그를 부추겼는데, 이 향유의 값이 한 사람의 일 년 수입에—5,000명에게 빵을 나누어주기에 충분한—해당되는 값어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하였고; 시체에 바르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녀가 준비한 것은, 주(主)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였을 때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으며,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주(主)가 아직 살아 계실 때 이것을 그에게 드리려고 하였던 것이다.

마리아가 이 백송향이 담긴 이 옥합을 자기 위하여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나사로와 마르다는 둘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진심

open a large alabaster cruse of very rare and costly ointment; and after anointing the Master's head, she began to pour it upon his feet as she took down her hair and wiped them with it. The whole house became filled with the odor of the ointment, and everybody present was amazed at what Mary had done. Lazarus said nothing, but when some of the people murmured, showing indignation that so costly an ointment should be thus used, Judas Iscariot stepped over to where Andrew reclined and said: “Why was this ointment not sold and the money bestowed to feed the poor? You should speak to the Master that he rebuke such waste.”

172:1.6 (1879.4) Jesus, knowing what they thought and hearing what they said, put his hand upon Mary's head as she knelt by his side and, with a kindly expression upon his face, said: “Let her alone, every one of you. Why do you trouble her about this, seeing that she has done a good thing in her heart? To you who murmur and say that this ointment should have been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let me say that you have the poor always with you so that you may minister to them at any time it seems good to you; but I shall not always be with you; I go soon to my Father. This woman has long saved this ointment for my body at its burial, and now that it has seemed good to her to make this anointing in anticipation of my death, she shall not be denied such satisfaction. In the doing of this, Mary has reproofed all of you in that by this act she evinces faith in what I have said about my death and ascension to my Father in heaven. This woman shall not be reproofed for that which she has this night done; rather do I say to you that in the ages to come, wherever this gospel shall be preach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

172:1.7 (1879.5) It was because of this rebuke, which he took as a personal reproof, that Judas Iscariot finally made up his mind to seek revenge for his hurt feelings. Many times had he entertained such ideas subconsciously, but now he dared to think such wicked thoughts in his open and conscious mind. And many others encouraged him in this attitude since the cost of this ointment was a sum equal to the earnings of one man for one year — enough to provide bread for five thousand persons. But Mary loved Jesus; she had provided this precious ointment with which to embalm his body in death, for she believed his words when he forewarned them that he must die, and it was not to be denied her if she changed her mind and chose to bestow this offering upon the Master while he yet lived.

172:1.8 (1879.6) Both Lazarus and Martha knew that Mary had long saved the money wherewith to buy this cruse of spikenard, and they heartily approved

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허락하였던 것은, 그들이 부유하였으므로 그런 헌물은 어렵지 않게 잘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나사로를 위한 만찬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두머리 사제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상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나사로도 반드시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려준 나사로를 살려두고, 예수만을 죽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 2 장. 일요일 아침에 사도들과 함께

이 날 일요일 아침에, 주(主)는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 두 사도들을 옆으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주의 사함을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여러 번 강론하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사도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중을 위한 일은 어떤 것도 행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곁에 따라다니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이 몰래 칼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의 교육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의 사도임명이 있는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날까지의, 그들의 사명활동에 대한 간단한 회고가 포용되었다. 사도들은 조용히 듣기만 하였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배대는 펠라 야영지의 장비들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금을 가롯 유다에게 건네주었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유다는 다시 이 돈의 대부분을 그들을 초대하였던 시몬에게 맡겼다.

사도들과의 의논이 끝난 후에 예수는 나사로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산헤드린의 복수심에 목숨을 희생하는 일은 피해야한다고 충고하였다. 나사로는 이 훈계에 순종하여, 며칠 후 산헤드린 관리들이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필라텔 피아로 피신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위기가 박두하였다는 것은 느꼈지만, 주(主)의 보기 드문 기쁨과 비범한 아름다운 유머 때문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는 못하였다.

제 3 장.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of her doing as her heart desired in such a matter, for they were well-to-do and could easily afford to make such an offering.

172:1.9 (1880.1) When the chief priests heard of this dinner in Bethany for Jesus and Lazarus, they began to take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what should be done with Lazarus. And presently they decided that Lazarus must also die. They rightly concluded that it would be useless to put Jesus to death if they permitted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to live.

2. SUNDAY MORNING WITH THE APOSTLES

172:2.1 (1880.2) On this Sunday morning, in Simon's beautiful garden, the Master called his twelve apostles around him and gave them their final instructions preparatory to entering Jerusalem. He told them that he would probably deliver many addresses and teach many lessons before returning to the Father but advised the apostles to refrain from doing any public work during this Passover sojourn in Jerusalem. He instructed them to remain near him and to "watch and pray." Jesus knew that many of his apostles and immediate followers even then carried swords concealed on their persons, but he made no reference to this fact.

172:2.2 (1880.3) This morning's instructions embraced a brief review of their ministry from the day of their ordination near Capernaum down to this day when they were preparing to enter Jerusalem. The apostles listened in silence; they asked no questions.

172:2.3 (1880.4) Early that morning David Zebedee had turned over to Judas the funds realized from the sale of the equipment of the Pella encampment, and Judas, in turn, had placed the greater part of this money in the hands of Simon, their host, for safekeeping in anticipation of the exigencies of their entry into Jerusalem.

172:2.4 (1880.5) After the conference with the apostles Jesus held converse with Lazarus and instructed him to avoid the sacrifice of his life to the vengeance of the Sanhedrin. It was in obedience to this admonition that Lazarus, a few days later, fled to Philadelphia when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sent men to arrest him.

172:2.5 (1880.6) In a way, all of Jesus' followers sensed the impending crisis, but they were prevented from fully realizing its seriousness by the unusual cheerfulness and exceptional good humor of the Master.

3. THE START FOR JERUSALEM

베다니로부터 성전까지는 약 2마일 거리였으며,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그곳에 있는 순박한 주민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를 배척하였지만, 베다니는 그를 환영하였으며, 그를 믿었다. 그의 지상 증여에서의 가장 막강한 일, 나사로의 부활을 행하기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이 믿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아침 내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개적인 메시아로 환영하는 어떤 움직임도 억제해 왔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다; 육신 속에서의 삶을 끝낼 때가 가까워졌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제자들이 자신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여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입성을 택한다 해도 그러한 것은 발생하리라 싶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의 이 공개적인 입성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고 결정하였다거나, 힘의 마지막 쟁취를 위해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열망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는 공상적으로 꿈꾸는 자들의 환상들을 일절 거부하였다; 이번의 방문에서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 잘 알고 계셨다.

주(主)는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였다. 예수는 소위 메시아적 예언들이라 불리는 다소 모순된 많은 것들을 모두 상고해 보았지만, 자신이 따르기에 적당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이 예언적 표현들 대부분은 한 왕, 다윗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이며, 외국의 통치에 의한 멍에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을 구해줄 대담하고 공격적인 현세적 해방자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명활동의 영적개념에 대하여 좀더 아는 사람들이 종종 메시아와 연관시켜 왔었던 하나의 성서 구절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의 예루살렘으로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입성을 위한 지침으로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성서는 스가라서였으며, 기록했다; “크게 기쁨을 향유하라, 오 시온의 딸아; 외쳐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로 온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가져오신다. 낮은 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땅아지, 곧 당나귀의 새끼라.”

전쟁을 하는 왕은 항상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평화와 우호의 사명을 가진 왕은 항상 나귀를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예수는 말을 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으며 대신, 당나귀를 탄 사람의 아들로서 평화롭게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였다.

172:3.1 (1880.7) Bethany was about two miles from the temple, and it was half past one that Sunday afternoon when Jesus made ready to start for Jerusalem. He had feelings of profound affection for Bethany and its simple people. Nazareth, Capernaum, and Jerusalem had rejected him, but Bethany had accepted him, had believed in him. And it was in this small village, where almost every man, woman, and child were believers, that he chose to perform the mightiest work of his earth bestowal, the resurrection of Lazarus. He did not raise Lazarus that the villagers might believe, but rather because they already believed.

172:3.2 (1880.8) All morning Jesus had thought about his entry into Jerusalem. Heretofore he had always endeavored to suppress all public acclaim of him as the Messiah, but it was different now; he was nearing the end of his career in the flesh, his death had been decreed by the Sanhedrin, and no harm could come from allowing his disciples to give free expression to their feelings, just as might occur if he elected to make a formal and public entry into the city.

172:3.3 (1881.1) Jesus did not decide to make this public entrance into Jerusalem as a last bid for popular favor nor as a final grasp for power. Neither did he do it altogether to satisfy the human longings of his disciples and apostles. Jesus entertained none of the illusions of a fantastic dreamer; he well knew what was to be the outcome of this visit.

172:3.4 (1881.2) Having decided upon making a public entrance into Jerusalem, the Master was confronted with the necessity of choosing a proper method of executing such a resolve. Jesus thought over all of the many more or less contradictory so-called Messianic prophesies, but there seemed to be only one which was at all appropriate for him to follow. Most of these prophetic utterances depicted a king, the son and successor of David, a bold and aggressive temporal deliverer of all Israel from the yoke of foreign domination. But there was one Scripture that had sometimes been associated with the Messiah by those who held more to the spiritual concept of his mission, which Jesus thought might consistently be taken as a guide for his projected entry into Jerusalem. This Scripture was found in Zechariah, and it said: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comes to you. He is just and he brings salvation. He comes as the lowly one, riding upon an ass, upon a colt, the foal of an ass.”

172:3.5 (1881.3) A warrior king always entered a city riding upon a horse; a king on a mission of peace and friendship always entered riding upon an ass. Jesus would not enter Jerusalem as a man on horseback, but he was willing to enter peacefully and with good will as the Son of Man on a donkey.

예수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순전히 영적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으나; 이 노력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평이하고 개인적 가르침으로 실패하였던 것을, 이제는 상징적인 호소를 통하여 이루려고 시도하려 하였다. 따라서 예수는 점심 식사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베다니 북서쪽 큰 길 옆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마을인 벳바게로 가라고 지도한 후에 말씀했다; “벳바게로 가서, 사거리가 나오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데려오도록 하여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다만 ‘주(主)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만 대답하여라.” 그리고 두 사도들이 주(主)가 지도한 대로 벳바게에 갔을 때, 길모퉁이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한가한 길에서 어미 곁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다. 베드로가 그 나귀새끼를 풀기 시작하였을 때, 주인이 다가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었으며, 베드로가 주(主)가 지도하였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말했다; “만일 당신들의 주(主)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면, 그 나귀 새끼를 가져다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돌아왔다.

수 백 명의 순례자들이 이때까지도 예수와 사도들 곁에 모여 있었다. 아침나절 중간쯤부터,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다윗 세배대와 전에 그의 메신저였던 몇몇 연관-동료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방문하고 있는 수많은 성전 순례자들 속에 나사렛 예수가 승리의 행진으로 도시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효과적으로 퍼뜨리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 천 명의 방문객들이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군중들은, 올리브 산 정상을 지나 도시로 내려오기 시작한 예수와 무리들을 만났다.

그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하였을 때, 대개 갈릴리와 페레아로부터 온 제자들과 믿는 자들 그리고 방문하기 위한 순례자들로 구성된, 축제에 참석하려는 무리들은 크게 열광하고 있었다.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초기 여자 대원이었던 열 두 명의 여인들이 연관-동료들 몇 명과 함께 도착하여 이 광경을 보았으며, 도시를 향하여 기쁨에 넘쳐서 움직이는 이 진기한 행렬에 동참하였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쌍둥이 형제 알페오는 그들의 겹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主)가 타실 수 있도록 붙들어드렸다. 행렬이 올리브 산꼭대기를 향하여 움직이자, 축제에 참석하려는 군중들은 왕가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를 태우고 있는 나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양탄자를 깔기 위하여 그들의 옷을 길에 깔고,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들을 가져왔다. 즐거워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하였고, 시편을 한 음성으로 읊으며

172:3.6 (1881.4) Jesus had long tried by direct teaching to impress upon his apostles and his disciples that his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that it was a purely spiritual matter; but he had not succeeded in this effort. Now, what he had failed to do by plain and personal teaching, he would attempt to accomplish by a symbolic appeal. Accordingly, right after the noon lunch, Jesus called Peter and John, and after directing them to go over to Bethpage, a neighboring village a little off the main road and a short distance northwest of Bethany, he further said: “Go to Bethpage, and when you come to the junction of the roads, you will find the colt of an ass tied there. Loose the colt and bring it back with you. If anyone asks you why you do this, merely say, ‘The Master has need of him.’” And when the two apostles had gone into Bethpage as the Master had directed, they found the colt tied near his mother in the open street and close to a house on the corner. As Peter began to untie the colt, the owner came over and asked why they did this, and when Peter answered him as Jesus had directed, the man said: “If your Master is Jesus from Galilee, let him have the colt.” And so they returned bringing the colt with them.

172:3.7 (1881.5) By this time several hundred pilgrims had gathered around Jesus and his apostles. Since midforenoon the visitors passing by on their way to the Passover had tarried. Meanwhile, David Zebedee and some of his former messenger associates took it upon themselves to hasten on down to Jerusalem, where they effectively spread the report among the throngs of visiting pilgrims about the temple that Jesus of Nazareth was making a triumphal entry into the city. Accordingly, several thousand of these visitors flocked forth to greet this much-talked-of prophet and wonder-worker, whom some believed to be the Messiah. This multitude, coming out from Jerusalem, met Jesus and the crowd going into the city just after they had passed over the brow of Olivet and had begun the descent into the city.

172:3.8 (1882.1) As the procession started out from Bethany, there was great enthusiasm among the festive crowd of disciples, believers, and visiting pilgrims, many hailing from Galilee and Perea. Just before they started, the twelve women of the original women's corps, accompanied by some of their associates, arrived on the scene and joined this unique procession as it moved on joyously toward the city.

172:3.9 (1882.2) Before they started, the Alpheus twins put their cloaks on the donkey and held him while the Master got on. As the procession moved toward the summit of Olivet, the festive crowd threw their garments on the ground and brought branches from the near-by trees in order to make a carpet of honor for the donkey bearing the royal Son, the promised Messiah. As the merry crowd moved on toward Jerusalem, they began to sing,

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에게 축복을.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왕국에 축복을.”이라고 외쳤다.

그 성과 성전 탑들이 잘 내려다보이는 올리브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예수는 무리들과 함께 명랑하고 즐거워하였지만; 주(主)는 그곳에서 행렬을 멈추게 하였고, 그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자, 무거운 침묵이 모두에게 엄습하였다. 거대한 군중이 자신을 환영하려고 도시에서 나오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주(主)는 크게 감동되고 슬픔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였다. “오 예루살렘아, 그토록 값없이 가질 수 있었던, 너희 평안에 속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한창일 때에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이 영광들이 네 눈에서 가리어져 있다. 너는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려고 하며, 구원의 복음에 등을 돌리려고 한다. 너의 적들이 너희를 돌려 진을 치고 포위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너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너에게 오는 신성한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저릴 것이다.”

그가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은 다시 올리브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안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든지 아니면 즐거워 떠돌고 서로 반기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방문객 무리들과 합세하였다. 이러한 군중이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것은 주(主)가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극적인 일을 미리 꾸미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다.

주(主)를 환영하기 위하여 쏟아져 나온 군중들 속에는, 많은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적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였던 민중의 환호에 너무나도 당황하였으며, 민중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그를 체포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대부분이 그를 믿는, 그 많은 방문객들의 태도를 무척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군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위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예수 곁을 따라 길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선생이여, 짐장게 행동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고 타이르셔야만 합니다.” 예수는, “우두머리 사제들이 거부한 평화의 아들을 이 자녀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멈추게 한다면, 그들 대신에 길옆에 있는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때 성전에서 회의를 하고

or rather to shout in unison, the Psalm,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be the kingdom that comes down from heaven.”

172:3.10 (1882.3) Jesus was lighthearted and cheerful as they moved along until he came to the brow of Olivet, where the city and the temple towers came into full view; there the Master stopped the procession, and a great silence came upon all as they beheld him weeping. Looking down upon the vast multitude coming forth from the city to greet him, the Master, with much emotion and with tearful voice, said: “O Jerusalem, if you had only known, even you, at least in this your day, the things which belong to your peace, and which you could so freely have had! But now are these glories about to be hid from your eyes. You are about to reject the Son of Peace and turn your backs upon the gospel of salvation. The days will soon come upon you wherein your enemies will cast a trench around about you and lay siege to you on every side; they shall utterly destroy you, insomuch that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And all this shall befall you because you knew not the time of your divine visitation. You are about to reject the gift of God, and all men will reject you.”

172:3.11 (1882.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hey began the descent of Olivet and presently were joined by the multitude of visitors who had come from Jerusalem waving palm branches, shouting hosannas, and otherwise expressing gleefulness and good fellowship. The Master had not planned that these crowds should come out from Jerusalem to meet them; that was the work of others. He never premeditated anything which was dramatic.

172:3.12 (1882.5) Along with the multitude which poured out to welcome the Master, there came also many of the Pharisees and his other enemies. They were so much perturbed by this sudden and unexpected outburst of popular acclaim that they feared to arrest him lest such action precipitate an open revolt of the populace. They greatly feared the attitude of the large numbers of visitors, who had heard much of Jesus, and who, many of them, believed in him.

172:3.13 (1882.6) As they neared Jerusalem, the crowd became more demonstrative, so much so that some of the Pharisees made their way up alongside Jesus and said: “Teacher, you should rebuke your disciples and exhort them to behave more seemly.” Jesus answered: “It is only fitting that these children should welcome the Son of Peace, whom the chief priests have rejected. It would be useless to stop them lest in their stead these stones by the roadside cry out.”

172:3.14 (1882.7) The Pharisees hastened on ahead of

있는 산헤드린에 합세하기 위하여 서둘러 행렬 앞으로 갔으며, 연관-동료들에게 보고하였다. “보라,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다; 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난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그에게로 몰려 나갔으니; 우리가 이 무식한 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의견상의 자연적인 민중들의 열광에는 아무런 깊은 의의(意義)가 실제로 없었다. 이러한 환영은, 기쁘고 진지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축제에 참석한 이 군중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제적인 신념을 조금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동일한 이 군중들은 이 주간의 마지막에 산헤드린이 그를 배척하기로 굳게 결의하고, 자신들이 환영을 느꼈을 때—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것에 따라 왕국을 예수가 세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마찬가지로 곧 기꺼이 예수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 온통 크게 소동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군중들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시다.”하며 대답하였다.

제 4 장. 성전 근처를 방문

알페오 쌍둥이 형제들이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간 동안,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은 가까이 있는 연관-동료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성전을 거닐었으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크게 무서워하였으므로 예수를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것은 결국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도록 허락한 이유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도들은 도시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즉시 체포하지 않도록 효력을 발생한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 행태였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주(主)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또한 수 만 명의 유월절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듣고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받아들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싶었다.

그러하여 이제 저녁이 되고 군중들이 양식을 찾으러 갔으며, 예수와 그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유별난 하루였는지!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하였던 지난 기간 동안 이런 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보관함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부금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부자들은 수납상자에 많이 집어넣었으며 모두 자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얼마씩 내었다. 마침내 초라하게 차려입은 한 가난한 과부가 왔으며, 그들은 그녀가 두전(작은 구리동전)을 깔때기 모양의 구멍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과부를 주목해 보라고 하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방금 본 것을 명심하도록 해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the procession to rejoin the Sanhedrin, which was then in session at the temple, and they reported to their associates: “Behold, all that we do is of no avail; we are confounded by this Galilean. The people have gone mad over him; if we do not stop these ignorant ones, all the world will go after him.”

172:3.15 (1883.1) There really was no deep significance to be attached to this superficial and spontaneous outburst of popular enthusiasm. This welcome, although it was joyous and sincere, did not betoken any real or deep-seated conviction in the hearts of this festive multitude. These same crowds were equally as willing quickly to reject Jesus later on this week when the Sanhedrin once took a firm and decided stand against him, and when they became disillusioned — when they realized that Jesus was not going to establish the kingdom in accordance with their long-cherished expectations.

172:3.16 (1883.2) But the whole city was mightily stirred up, insomuch that everyone asked, “Who is this man?” And the multitude answered, “This is the prophet of Galilee, Jesus of Nazareth.”

4. VISITING ABOUT THE TEMPLE

172:4.1 (1883.3) While the Alpheus twins returned the donkey to its owner, Jesus and the ten apostles detached themselves from their immediate associates and strolled about the temple, viewing the preparations for the Passover. No attempt was made to molest Jesus as the Sanhedrin greatly feared the people, and that was, after all, one of the reasons Jesus had for allowing the multitude thus to acclaim him. The apostles little understood that this was the only human procedure which could have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Jesus' immediate arrest upon entering the city. The Master desired to give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high and low, as well as the tens of thousands of Passover visitors, this one more and last chance to hear the gospel and receive, if they would, the Son of Peace.

172:4.2 (1883.4) And now, as the evening drew on and the crowds went in quest of nourishment, Jesus and his immediate followers were left alone. What a strange day it had been! The apostles were thoughtful, but speechless. Never, in their years of association with Jesus, had they seen such a day. For a moment they sat down by the treasury, watching the people drop in their contributions: the rich putting much in the receiving box and all giving something in accordance with the extent of their possessions. At last there came along a poor widow, scantily attired, and they observed as she cast two mites (small coppers) into the trumpet. And then said Jesus, calling the attention of the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사치스러움으로부터 약간의 풍돈 안에서 선물로서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그녀가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살아가는 데 쓸 것까지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없이 성전 뜰을 거닐었으며, 예수가 전에 방문하였던 것과 관련된 감정들을 회상하면서, 이 친숙한 장면들을 한 번 더 둘러보신 후에 말씀하였다: “우리의 휴식을 위하여 베다니로 가자.”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가셨으며,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벳바게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다.

제 5 장. 사도들의 태도

이 날 일요일 저녁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올 때, 예수는 사도들보다 앞장서서 걸었다. 시몬의 집에 도착한 후 서로 헤어질 때까지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열 두 명의 사람이라도, 왕국 대사(大使)들의 마음과 혼속에 지금 밀려들어온 것과 같은, 그토록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강인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혼동되고 당황하여;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주(主)가 내일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안드레는 아주 당황해서 거의 혼동된 상태였다. 그는 환호하는 민중들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사도 대원들의 대표자(代表者)로서의 자기 책임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대중들이 호산나를 크게 외친 의미나 의의(意義)에 진지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안드레는 그의 연관-동료들 중에 흥분하여 그 소동 속에서 가담(加擔)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 켈로페를 지켜보기에 바빴다. 안드레는 이 날부터 며칠 동안 내내 심각한 의심으로 괴로웠지만, 그의 연관-동료 사도들에게는 이 의심들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12사도들 중 일부의 태도를 걱정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가 그러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의 행진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피상적인 인상을 주었을 뿐이고; 그는 자기가 맡은 책임에 너무 바빠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열광에 빠진 이 민중

apostles to the widow: “Heed well what you have just seen. This poor widow cas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for all these others, from their superfluity, cast in some trifle as a gift, but this poor woman, even though she is in want, gave all that she had, even her living.”

172:4.3 (1883.5) As the evening drew on, they walked about the temple courts in silence, and after Jesus had surveyed these familiar scenes once more, recalling his emotions in connection with previous visits, not excepting the earlier ones, he said, “Let us go up to Bethany for our rest.” Jesus, with Peter and John, went to the home of Simon, while the other apostles lodged among their friends in Bethany and Bethpage.

5. THE APOSTLES' ATTITUDE

172:5.1 (1883.6) This Sunday evening as they returned to Bethany, Jesus walked in front of the apostles. Not a word was spoken until they separated after arriving at Simon's house. No twelve human beings ever experienced such diverse and inexplicable emotions as now surged through the minds and souls of these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ese sturdy Galileans were confused and disconcerted; they did not know what to expect next; they were too surprised to be much afraid. They knew nothing of the Master's plans for the next day, and they asked no questions. They went to their lodgings, though they did not sleep much, save the twins. But they did not keep armed watch over Jesus at Simon's house.

172:5.2 (1884.1) Andrew was thoroughly bewildered, well-nigh confused. He was the one apostle who did not seriously undertake to evaluate the popular outburst of acclaim. He was too preoccupied with the thought of his responsibility as chief of the apostolic corps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e loud hosannas of the multitude. Andrew was busy watching some of his associates who he feared might be led away by their emotions during the excitement, particularly Peter, James, John, and Simon Zelotes. Throughout this day and those which immediately followed, Andrew was troubled with serious doubts, but he never expressed any of these misgivings to his apostolic associates. He was concerned about the attitude of some of the twelve who he knew were armed with swords; but he did not know that his own brother, Peter, was carrying such a weapon. And so the procession into Jerusalem made a comparatively superficial impression upon Andrew; he was too busy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his office to be otherwise affected.

172:5.3 (1884.2) Simon Peter was at first almost

의 현시활동 때문에 거의 온 몸이 붕 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침착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 마디로, 주(主)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이런 군중적 인기의 물결을, 어떤 무언가의 선포로 따라가지 않는 것에 아주 심하게 실망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쩌서 적어도 사도들중의 하나에게는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토록 많은, 잘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청중들을 헛되이 가도록 놔두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성전에 있는 바로 그 군중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주(主)는 이 유월절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였었다. 성안으로 들어가는 대대적인 행렬에 대하여 행한 반응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는 밤이 되자, 제 정신이 들었고, 말할 수 없도록 슬픔에 잠겼다.

야고보 세베대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은 당황과 깊은 혼동의 하루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토록 거센 환호를 허락하고서 그 뒤에는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주(主)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브 산을 내려갈 때, 특히 그들이 주(主)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오는 수 천 명의 순례자들을 만났을 때, 야고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가슴 뿌듯함과 충족,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의한, 이 서로 엇갈리는 감정 때문에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나귀에서 내려와 성전 뜰을 한가히 걸으실 때 낙심하였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야고보는 왕국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의 마음은 비참함과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왜 이렇게 하였는지 어느 면에서는 가깝게 납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는 소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식에 대한 영적의의(意義)를 적어도 일부분은 파악하였다. 군중들이 성전으로 움직일 때, 요한은 나귀에 걸터앉으신 주(主)를 붙잡으면서, 언젠가 예수가 성서에서 인용하였던 스가랴서를 상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평화의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요한은 마음속에서 성서를 이모저모 따지면서, 이 일요일 오후 행렬의 상징적인 의의(意義)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그는 마침내 이 에피소드의 뜻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성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겉보기에 아무 의미없이 개선의 행진이 끝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울해지는 것이 방지되었다. 요한은 상징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진 마음 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swept off his feet by this popular manifestation of enthusiasm; but he was considerably sobered by the time they returned to Bethany that night. Peter simply could not figure out what the Master was about. He was terribly disappointed that Jesus did not follow up this wave of popular favor with some kind of a pronouncement. Peter could not understand why Jesus did not speak to the multitude when they arrived at the temple, or at least permit one of the apostles to address the crowd. Peter was a great preacher, and he disliked to see such a large, receptive, and enthusiastic audience go to waste. He would so much have liked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at throng right there in the temple; but the Master had specifically charged them that they were to do no teaching or preaching while in Jerusalem this Passover week. The reaction from the spectacular procession into the city was disastrous to Simon Peter; by night he was sobered and inexpressibly saddened.

172:5.4 (1884.3) To James Zebedee, this Sunday was a day of perplexity and profound confusion; he could not grasp the purport of what was going on; he could not comprehend the Master's purpose in permitting this wild acclaim and then in refusing to say a word to the people when they arrived at the temple. As the procession moved down Olivet toward Jerusalem, more especially when they were met by the thousands of pilgrims who poured forth to welcome the Master, James was cruelly torn by his conflicting emotions of elation and gratification at what he saw and by his profound feeling of fear as to what would happen when they reached the temple. And then was he downcast and overcome by disappointment when Jesus climbed off the donkey and proceeded to walk leisurely about the temple courts. James could not understand the reason for throwing away such a magnificent opportunity to proclaim the kingdom. By night, his mind was held firmly in the grip of a distressing and dreadful uncertainty.

172:5.5 (1884.4) John Zebedee came somewhere near understanding why Jesus did this; at least he grasped in part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is so-called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As the multitude moved on toward the temple, and as John beheld his Master sitting there astride the colt, he recalled hearing Jesus onetime quote the passage of Scripture, the utterance of Zechariah, which described the coming of the Messiah as a man of peace and riding into Jerusalem on an ass. As John turned this Scripture over in his mind, he began to comprehen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is Sunday-afternoon pageant. At least, he grasped enough of the meaning of this Scripture to enable him somewhat to enjoy the episode and to prevent his becoming overmuch depressed by the apparent purposeless ending of the triumphal procession. John had a type of mind which naturally tended to think and feel in symbols.

빌립은 쏟아져 나온 군중들의 갑작스러움과 자발성 때문에 전적으로 안정을 잃었다. 그는 올리브 산을 내려올 오는 동안 그 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떤 안정된 정신을 차릴 만큼 그의 생각을 충분히 가다듬을 수 없었다. 그는 주(主)가 예수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광경을 즐겼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예수가 아마도 그 군중들을 먹이라고 자기에게 명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였으므로, 예수가 것처럼 군중들로부터 유유히 떠나시는 행위에, 사도들 대부분은 몹시 낙심하였지만, 빌립은 매우 안심이 되었다. 열 두 사도들의 사무장이었던 그에게 군중들은 때로 큰 시련이었다. 군중들에 대한 물질적 필요에 관한 이들 개인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자, 빌립은 베드로와 합세하여 군중들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빌립은 그 날 밤 이러한 체험들을 되새겨 보면서 왕국에 대한 관념 전체를 의심하는 유혹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궁금하였지만, 자신의 의심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였다. 그는 주(主)에 대한 매우 큰 개인적 신앙을 가졌다.

나다니엘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주(主)가 유월절 순례자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유를 가장 가깝게 납득하였다. 그는 추측하기를, 예루살렘에 그렇게 시위하며 입성하지 않고는,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에 들어가려는 순간 예수가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일단 성곽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유대인 영도자들에게 그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감동을 주게 되었을 때, 주(主)가 환호하는 집단들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시려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주(主)가 왜 이런 방법으로 도시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실제 이유를 납득하였으므로, 예수의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도들 보다 자연스럽게 더 안정되어 있었으며, 동요나 낙심하는 정도가 덜하였다. 나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의 납득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그의 총명성과 영리함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태는 이 화려한 행렬 행위에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한, 선지자가 암시했던 스가랴서를 그도 역시 기억할 때까지는, 자기 눈에 비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행렬이 도시를 향하여 움직이고 마침내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환희에 빠졌다;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 계신 주(主)가 성전에 도착하면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며,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오는가를 좀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말

172:5.6 (1885.1) Philip was entirely unsettled by the suddenness and spontaneity of the outburst. He could not collect his thoughts sufficiently while on the way down Olivet to arrive at any settled notion as to what all the demonstration was about. In a way, he enjoyed the performance because his Master was being honored. By the time they reached the temple, he was perturbed by the thought that Jesus might possibly ask him to feed the multitude, so that the conduct of Jesus in turning leisurely away from the crowds, which so sorely disappointed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was a great relief to Philip. Multitudes had sometimes been a great trial to the steward of the twelve. After he was relieved of these personal fears regard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crowds, Philip joined with Peter in the expression of disappointment that nothing was done to teach the multitude. That night Philip got to thinking over these experiences and was tempted to doubt the whole idea of the kingdom; he honestly wondered what all these things could mean, but he expressed his doubts to no one; he loved Jesus too much. He had great personal faith in the Master.

172:5.7 (1885.2) Nathaniel, aside from the symbolic and prophetic aspects, came the nearest to understanding the Master's reason for enlisting the popular support of the Passover pilgrims. He reasoned it out, before they reached the temple, that without such a demonstrative entry into Jerusalem Jesus would have been arrested by the Sanhedrin officials and cast into prison the moment he presumed to enter the city. He was not, therefore, in the least surprised that the Master made no further use of the cheering crowds when he had once got inside the walls of the city and had thus so forcibly impressed the Jewish leaders that they would refrain from placing him under immediate arrest. Understanding the real reason for the Master's entering the city in this manner, Nathaniel naturally followed along with more poise and was less perturbed and disappointed by Jesus' subsequent conduct than were the other apostles. Nathaniel had great confidence in Jesus' understanding of men as well as in his sagacity and cleverness in handling difficult situations.

172:5.8 (1885.3) Matthew was at first nonplused by this pageant performance. He did not grasp the meaning of what his eyes were seeing until he also recalled the Scripture in Zechariah where the prophet had alluded to the rejoicing of Jerusalem because her king had come bringing salvation and riding upon the colt of an ass. As the procession moved in the direction of the city and then drew on toward the temple, Matthew became ecstatic; he was certain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ould happen when the Master arrived at the temple at the head of this shouting multitude. When one of

하였을 때, 마태는 크게 자제함으로서 가까스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날 저녁 베다니로 돌아갈 때, 열 두 사도들 중에서 마태보다 더 우울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시몬 베드로와 시몬 켈로페 못지않게, 신경이 가장 곤두서는 체험을 하였고, 밤이 되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훨씬 원기를 회복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씩씩한 패자였다.

도마는 모든 열 두 사도들 중에서 가장 당황하고 어리둥절해진 사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고, 그 광경을 둘러보면서, 그러한 유별난 시위에 주(主)가 어떤 동기에서 참여하는 지에 대하여 정직하게 궁금해 하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모든 행위가 유치하게 여겨졌고, 그도 아니라면 영광없이 바로 같다고 여겼다. 그는 예수가 결코 이런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이 일요일 오후의 그의 이상한 행위를 설명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게 되어서, 도마는 민중들의 이러한 시위의 목적이 산헤드린을 매우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主)를 즉시로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도마는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예루살렘에의 떠들썩한 입성 장면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영리함이 어떤 재미있는 호소를 이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는 이로 인하여 매우 활력을 찾았다.

시몬 켈로페에게 이 일요일은 어떤 위대한 날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의 예루살렘에서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 점에서는 그가 옳았지만, 그러나 시몬이 꿈꾼 것은 예수가 다윗의 보위에 앉아 있고, 유대인들의 새 국가 통치가 확립되는 꿈이었다. 시몬은 왕국이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행동으로 일어나면서, 자신은 새 왕국의 군집하고 있는 군사력의 최극 지휘를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올리브 산을 내려가 길에, 산헤드린과 모든 그들의 동조자들이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죽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까지 했다. 그는 실제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믿었다. 그는 모든 군중들 중에서도 가장 소리가 컸다. 그 날 오후 5시가 되자, 그는 침묵했고, 기가 꺾이고 환상을 버리게 된 사도였다. 그는 이 날 충격의 결과로서 그에게 덮친 우울증으로부터, 적어도 주(主)가 부활한 후 한참 지날 때까지, 충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알페오 쌍둥이 형제에게 이 날은 완전한 날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끝까지 즐겼으며, 성전을 조용히 방문하는 동안은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민중의 격동이 최고로 식어버린 분위기는 느끼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날 저녁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기가 꺾인 사도들의 태도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다. 두 쌍둥이들의 기억 속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웠던 날로 남아 있었다. 이 날은 사도로서의 그들 전 생애에서 만족함을 주는 절정이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오후의 의기양양했던 추억은 파란 많은 이 주

the Pharisees mocked Jesus, saying, "Look, everybody, see who comes here, the king of the Jews riding on an ass!" Matthew kept his hands off of him only by exercising great restraint. None of the twelve was more depressed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at evening. Next to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he experienced the highest nervous tension and was in a state of exhaustion by night. But by morning Matthew was much cheered; he was, after all, a cheerful loser.

172:5.9 (1886.1) Thomas was the most bewildered and puzzled man of all the twelve. Most of the time he just followed along, gazing at the spectacle and honestly wondering what could be the Master's motive for participating in such a peculiar demonstration. Down deep in his heart he regarded the whole performance as a little childish, if not downright foolish. He had never seen Jesus do anything like this and was at a loss to account for his strange conduct on this Sunday afternoon. By the time they reached the temple, Thomas had deduced that the purpose of this popular demonstration was so to frighten the Sanhedrin that they would not dare immediately to arrest the Master.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omas thought much but said nothing. By bedtime the Master's cleverness in staging the tumultuous entry into Jerusalem had begun to make a somewhat humorous appeal, and he was much cheered up by this reaction.

172:5.10 (1886.2) This Sunday started off as a great day for Simon Zelotes. He saw visions of wonderful doings in Jerusalem the next few days, and in that he was right, but Simon dreame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al rule of the Jews, with Jesus on the throne of David. Simon saw the nationalists springing into action as soon as the kingdom was announced, and himself in supreme command of the assembling military forces of the new kingdom. On the way down Olivet he even envisaged the Sanhedrin and all of their sympathizers dead before sunset of that day. He really believed something great was going to happen. He was the noisiest man in the whole multitude. By five o'clock that afternoon he was a silent, crushed, and disillusioned apostle. He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depression which settled down on him as a result of this day's shock; at least not until long after the Master's resurrection.

172:5.11 (1886.3) To the Alpheus twins this was a perfect day. They really enjoyed it all the way through, and not being present during the time of quiet visitation about the temple, they escaped much of the anticlimax of the popular upheaval. They could not possibly understand the downcast behavior of the apostles when they came back to Bethany that evening. In the memory of the twins this was always their day of being nearest heaven on earth. This day was the satisfying climax of their whole career as apostles. And the memory of

간의 모든 비극을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쌍둥이가 착상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왕의 입장식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 전체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 그들은 그들이 본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소중한 간직하였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으로의 이 행렬을 이론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 전 날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연회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일과 관련하여 주(主)의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유다는 모든 광경 전부가 혐오스러웠다. 그에게는 그것이 유치하게 보였고, 그것도 아니라면 참으로 비웃을 일로 보였다. 복수심이 가득한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예수는 왕이라기보다 어릿광대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슴깊이 분개하고 있었다. 그는 당나귀나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을 깔보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 개선 행렬이 도시로 들어갈 즈음이 되자, 유다는 그러한 왕국의 모든 관념을 내버리기로 그의 마음을 거의 작정하였다;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모든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저버리기로 거의 작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 더, 열 두 명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그가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으므로, 사도들의 자금을 지닌 채로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 날 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른 사도들도 모두 똑같이 풀이 죽고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의 사두개인 친구들의 비웃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수가 성문에 막 도착하였을 때 발생한 어떤 에피소드만큼, 다른 어떤 한 요소가 그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 한 저명한 사두개인(유다 집안의 친구)이 그에게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매우 즐겁게 조롱하는 말투로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왜 표정이 그렇게 침통한가; 기운을 내고, 나귀 등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환호하는 우리들에게 동참하지 않겠나.” 유다는 어떤 박해에도 굴복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비웃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복수의 감정이 조롱받는다는 이 치명적 두려움, 주(主)와 동료 사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소름끼치고 두려움이 가득한 느낌과 뒤섞이게 되었다. 사도임명 받은 이 왕국의 대사는, 가슴에서 이미 도망자였다; 주(主)와 드러내놓고 단절하기 위한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 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the elation of this Sunday afternoon carried them on through all of the tragedy of this eventful week, right up to the hour of the crucifixion. It was the most befitting entry of the king the twins could conceive; they enjoyed every moment of the whole pageant. They fully approved of all they saw and long cherished the memory.

172:5.12 (1886.4) Of all the apostles, Judas Iscariot was the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is processional entry into Jerusalem. His mind was in a disagreeable ferment because of the Master's rebuke the preceding day in connection with Mary's anointing at the feast in Simon's house. Judas was disgusted with the whole spectacle. To him it seemed childish, if not indeed ridiculous. As this vengeful apostle looked upon the proceedings of this Sunday afternoon, Jesus seemed to him more to resemble a clown than a king. He heartily resented the whole performance. He shared the views of the Greeks and Romans, who looked down upon anyone who would consent to ride upon an ass or the colt of an ass. By the time the triumphal procession had entered the city, Judas had about made up his mind to abandon the whole idea of such a kingdom; he was almost resolved to forsake all such farcical attempt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n he thought of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nd many other things, and decided to stay on with the twelve, at least for another day. Besides, he carried the bag, and he would not desert with the apostolic funds in his possession. On the way back to Bethany that night his conduct did not seem strange since all of the apostles were equally downcast and silent.

172:5.13 (1887.1) Judas was tremendously influenced by the ridicule of his Sadducean friends. No other single factor exerted such a powerful influence on him, in his final determination to forsake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as a certain episode which occurred just as Jesus reached the gate of the city: A prominent Sadducee (a friend of Judas's family) rushed up to him in a spirit of gleeful ridicule and, slapping him on the back, said: "Why so troubled of countenance, my good friend; cheer up and join us all while we acclaim this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as he rides through the gates of Jerusalem seated on an ass." Judas had never shrunk from persecution, but he could not stand this sort of ridicule. With the long-nourished emotion of revenge there was now blended this fatal fear of ridicule, that terrible and fearful feeling of being ashamed of his Master and his fellow apostles. At heart, this ordained ambassador of the kingdom was already a deserter; it only remained for him to find some plausible excuse for an open break with the Master.

제 173 편 예루살렘에서의 월요일

⇨ 172

유랜시아 책

17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3 편 예루살렘에서의 월요일

색션

소개

제 1 장. 성전을 깨끗이 하다

제 2 장. 주(主)의 권한에 도전함

제 3 장. 두 아들의 비유

제 4 장.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제 5 장. 결혼 잔치 비유

PAPER 173

MONDAY IN JERUSALEM

SECTIONS

Introduction

1. Cleansing the Temple

2. Challenging the Master's Authority

3. Parable of the Two Sons

4. Parable of the Absent Landlord

5. Parable of the Marriage Feast

소개

월요일 이른 아침, 사전 약속에 의해서, 예수와 사도들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모였으며, 잠시 의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열 두 사도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할 만큼 조용하였다; 그들은 전날의 체험으로부터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기대감이 있었고, 두려워했고, 이번 유월절 주간에 두루 그들이 어떠한 대중을 위한 가르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그의 지시와 함께, 주(主)의 갑작스럽게 전술을 바꿈으로써 생긴 어떤 초연한 느낌 때문에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일행들이 올리브 산을 내려갈 때, 예수는 앞서서 가셨고,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 침묵하는 가운데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갔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主)는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유다가 열중한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할까? 연관-동료들과 함께 예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그만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별할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성전에 도착한 것은 쾌청한 이날 아침 9시경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여러 번 가르치셨던 넓은 뜰로 바로 나아갔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예수는 가르치는 강

INTRODUCTION

173:0.1 (1888.1) EARLY on this Monday morning, by prearrangement, Jesus and the apostles assembled at the home of Simon in Bethany, and after a brief conference they set out for Jerusalem. The twelve were strangely silent as they journeyed on toward the temple; they had not recover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preceding day. They were expectant, fearful, and profoundly affected by a certain feeling of detachment growing out of the Master's sudden change of tactics, coupled with his instruction that they were to engage in no public teaching throughout this Passover week.

173:0.2 (1888.2) As this group journeyed down Mount Olivet, Jesus led the way, the apostles following closely behind in meditative silence. There was just one thought uppermost in the minds of all save Judas Iscariot, and that was: What will the Master do today? The one absorbing thought of Judas was: What shall I do? Shall I go on with Jesus and my associates, or shall I withdraw? And if I am going to quit, how shall I break off?

173:0.3 (1888.3) It was about nine o'clock on this beautiful morning when these men arrived at the temple. They went at once to the large court where Jesus so often taught, and after greeting the believers who were awaiting him, Jesus

단 중 하나로 올라가서서 모인 청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하였다. 사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가서 되어 가는 일을 기다렸다.

mounted one of the teaching platforms and began to address the gathering crowd. The apostles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and awaited developments.

제 1 장. 성전을 깨끗이 하다

성전 경매의 예배봉사와 예식에 관련된 수많은 상업 행위들이 거대하게 발전되어 왔다. 여러 종류의 희생물로 바쳐지기에 합당한 동물들을 제공하는 장사가 있었다. 경매자들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은 되었지만, 이 동물이 레위 율법에 견주어보고, 그리고 성전 검사관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동물이 성전 검사관들에게 퇴짜를 맞는 창피를 체험하곤 했다. 그 때문에 희생 동물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실천 관행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올리브 산 가까이에서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었지만, 이들 동물을 성전에 있는 가축우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이 유행이 되어 있었다. 점차적으로 성전 뜰에서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용 동물들을 파는 이러한 관습은 성장하여 갔다. 그리하여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주는, 광범위한 장사가 이렇게 실존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들 소득의 일부는 성전 금고를 위해 비축 되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더 많은 부분은 성전을 지배하는 대제사장 가족들의 손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

이 성전 안에서의 동물 판매가 번영했던 이유는, 값이 약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자가 그러한 동물을 사면, 더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았으며, 시도하는 희생물이 실제로 혹은 기술적으로 흠을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거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체계가 보통 국민들에게 적용되었으며, 특별히 국가적인 대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러하였다. 어떤 때는 탐욕스러운 사제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몇 페니에 팔려야 될 비둘기 한 쌍을 일주일 분의 노동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안나스의 아들들”은 이미 성전 구내에 그들의 매장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상점들은 성전 자체가 파괴되기 3년 전에 폭도들에 의해 폐점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 바로 그 상품 매매 장소들이었다.

그러나 희생물용 동물들과 잡다한 물품들을 거래하는 행위만이 성전 뜰을 더럽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 때 당시, 성전의 경내 바로 안에서 실행된 은행업무와 상업용 환전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체계가 육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아스모니아 왕조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 특유의 은화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 유대인의 은전으로 성전 세금으로 반 세겔을 내는 것이 실천 관

1. CLEANSING THE TEMPLE

173:1.1 (1888.4) A huge commercial traffic had grown up in association with the services and ceremonies of the temple worship. There was the business of providing suitable animals for the various sacrifices. Though it was permissible for a worshiper to provide his own sacrifice, the fact remained that this animal must be free from all “blemish” in the meaning of the Levitical law and as interpreted by official inspectors of the temple. Many a worshiper had experienced the humiliation of having his supposedly perfect animal rejected by the temple examiners. It therefore became the more general practice to purchase sacrificial animals at the temple, and although there were several stations on near-by Olivet where they could be bought, it had become the vogue to buy these animals directly from the temple pens. Gradually there had grown up this custom of selling all kinds of sacrificial animals in the temple courts. An extensive business, in which enormous profits were made, had thus been brought into existence. Part of these gains was reserved for the temple treasury, but the larger part went indirectly into the hands of the ruling high-priestly families.

173:1.2 (1888.5) This sale of animals in the temple prospered because, when the worshiper purchased such an animal, although the price might be somewhat high, no more fees had to be paid, and he could be sure the intended sacrifice would not be rejected on the ground of possessing real or technical blemishes. At one time or another systems of exorbitant overcharge were practiced upon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during the great national feasts. At one time the greedy priests went so far as to demand the equivalent of the value of a week's labor for a pair of doves which should have been sold to the poor for a few pennies. The “sons of Annas” had already begun to establish their bazaars in the temple precincts, those very merchandise marts which persisted to the time of their final overthrow by a mob three years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tself.

173:1.3 (1889.1) But traffic in sacrificial animals and sundry merchandise was not the only way in which the courts of the temple were profaned. At this time there was fostered an extensive system of banking and commercial exchange which was carried on right within the temple precincts. And this all came about in the following manner: During the Asmonean dynasty the Jews coined their own silver money, and it had become the practice to

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모든 성전 요금들도 이 유대인용 동전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전역은 물론 로마제국 각 지방에서 통용되는 수많은 종류의 돈을, 유대인이 자체적으로 찍어낸 이 정통적인 세겔 은화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환전상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 중들, 그리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성전 인두세(人頭稅)는 반 세겔이었으며, 그 동전은 10 센트 동전과 대략 같은 크기였지만, 두께가 두 배쯤 되는 동전이었다. 예수 당시에 사제들은 성전세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유월절에 앞서서 그 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 받은 환전상들이 팔레스타인 주요 도시마다 환전소들을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및 로마 제국 곳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전 세(稅)를 바칠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었다.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이들 환전상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성전 뜰에 돈을 바꾸어주는 탁자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약 10센트의 가치가 있는 은전으로 바꾸어 줄 때마다 3센트 내지 4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더 큰 가치가 있는 은화로 바꾸어 줄 때에는 그들이 두 배까지 징수하는 것도 허락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들 성전의 은행가들도 희생용 동물들을 사기 위한 돈이나, 서약을 위한 비용이나 또는 헌납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돈을 바꾸어주면서 이익을 챙겼다.

성전에 있는 이러한 환전상들은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20여 종류 이상의 돈을 바꾸어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정기적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행 업무에 부속된 여러 가지 다른 거래에도 또한 관여하였다. 성전 재무관과 성전 관리들 모두는 이러한 상업 행위로부터 엄청난 이익금을 거두어들였다. 민중들이 가난에 조들리면서 이렇게 부당한 세금을 계속 제공하는 동안 성전의 재무관이 천만 불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은 보통이었다.

이 월요일 아침에, 환전상들, 상인들, 그리고 가축 판매자들의 시끄러운 무리들 속에서, 예수는 하늘왕국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에 예수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보통 국민들, 특히 외국 지방에서 방문한 유대인들도 또한, 그들의 국가적인 경배처소를 모독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에 진심으로 분개하였다. 이 때 산헤드린 자신은 매매와 물물교환으로 인한 이러한 모든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인 채로 회의장 안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예수가 막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그의 주의를 끄는 일들이 두 가지 발생하였다. 가까이에 있는 환전상의 돈을 바꾸어 주는 상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어느 유대인이 바가지를 썼다고 우겨댔으로써 맹렬하고 격한 다툼이 일어났으며, 동

require the temple dues of one-half shekel and all other temple fees to be paid with this Jewish coin. This regulation necessitated that money-changers be licensed to exchange the many sorts of currency in circulation throughout Palestine and other provinces of the Roman Empire for this orthodox shekel of Jewish coining. The temple head tax, payable by all except women, slaves, and minors, was one-half shekel, a coin about the size of a ten-cent piece but twice as thick. By the times of Jesus the priests had also been exempted from the payment of temple dues. Accordingly, from the 15th to the 25th of the month preceding the Passover, accredited money-changers erected their booths in the principal cities of Palestin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Jewish people with proper money to meet the temple dues after they had reached Jerusalem. After this ten-day period these money-changers moved on to Jerusalem and proceeded to set up their exchange tables in the courts of the temple. They were permitted to charge the equivalent of from three to four cents commission for the exchange of a coin valued at about ten cents, and in case a coin of larger value was offered for exchange, they were allowed to collect double. Likewise did these temple bankers profit from the exchange of all money intended for the purchase of sacrificial animals and for the payment of vows and the making of offerings.

173:1.4 (1889.2) These temple money-changers not only conducted a regular banking business for profit in the exchange of more than twenty sorts of money which the visiting pilgrims would periodically bring to Jerusalem, but they also engaged in all other kinds of transactions pertaining to the banking business. Both the temple treasury and the temple rulers profited tremendously from these commercial activities. It was not uncommon for the temple treasury to hold upwards of ten million dollars while the common people languished in poverty and continued to pay these unjust levies.

173:1.5 (1889.3) In the midst of this noisy aggregation of money-changers, merchandisers, and cattle sellers, Jesus, on this Monday morning, attempted to teach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He was not alone in resenting this profanation of the temple;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the Jewish visitors from foreign provinces, also heartily resented this profiteering desecration of their national house of worship. At this time the Sanhedrin itself held its regular meetings in a chamber surrounded by all this babble and confusion of trade and barter.

173:1.6 (1890.1) As Jesus was about to begin his address, two things happened to arrest his attention. At the money table of a near-by exchanger a violent and heated argument had arisen over the alleged overcharging of a Jew from

시에 백 마리 정도나 되는 황소 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축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예수가 잠시 멈춰서, 상업의 혼란에 빠진 이 장면을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생각으로 숙고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한때 이론에서 대화한 적이 있는 한 단순한 마음의 갈릴리 사람이, 거드름피우면서 우월함을 내보이려는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병합되어, 예수의 혼속에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분개한 감정의 하나를 산출하였다.

예수가 가르치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뜰을 가로질러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끈으로 된 채찍을 빼앗아서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신속히 몰아내었을 때, 곧 이어서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였던, 가까이에서 있던 사도들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성전 뜰에 모여서 놀라며 바라보고 있는 수 천 명의 사람들 앞을 지나, 가장 먼 가축우리로 장엄하게 걸어가서서 모든 우리의 문들을 열고 갇혀있는 모든 동물들을 몰아내었다. 이 때, 모여 있던 순례자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기 시작하였다. 5분도 채 안되어서 모든 거래행위들은 성전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 때, 가까이에서 있던 로마인 호위병들이 나타났으며, 모두 조용해지고, 군중들은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 예수는 단상(壇上)으로 돌아와서 군중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오늘 ‘내 집은 모든 나라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하겠으나,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서에 쓰여 있는 그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그가 다른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모인 큰 군중이 찬양하는 소리를 터트렸고, 그리고 당장에 젊은이들의 무리가, 신성을 모독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거룩한 성전에서 쫓아낸 것을 치하하는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려고, 군중 속으로부터 앞으로 나섰다. 이 때, 어떤 사제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예수께 “레위인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들립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主)는, “너희가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찬양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결코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루 종일, 예수가 가르치시는 동안 사람들이 늘어서서 마련한, 파수들이 모든 반원모양의 통로를 지키고 섰고, 누구든지 빈 그릇일지라도 무엇을 들고는 성전 뜰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을 들은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主)를 두려워하는 만큼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그가 신성모독의 악덕상인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제 공공연히 동조하는 군중들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날은 하루 종일 성전 뜰에 고요와 평화가 넘쳤다.

Alexandria, while at the same moment the air was rent by the bellowing of a drove of some one hundred bullocks which was being driven from one section of the animal pens to another. As Jesus paused, silently but thoughtfully contemplating this scene of commerce and confusion, close by he beheld a simple-minded Galilean, a man he had once talked with in Iron, being ridiculed and jostled about by supercilious and would-be superior Judeans; and all of this combined to produce one of those strange and periodic uprisings of indignant emotion in the soul of Jesus.

173:1.7 (1890.2) To the amazement of his apostles, standing near at hand, who refrained from participation in what so soon followed, Jesus stepped down from the teaching platform and, going over to the lad who was driving the cattle through the court, took from him his whip of cords and swiftly drove the animals from the temple. But that was not all; he strode majestically before the wondering gaze of the thousands assembled in the temple court to the farthest cattle pen and proceeded to open the gates of every stall and to drive out the imprisoned animals. By this time the assembled pilgrims were electrified, and with uproarious shouting they moved toward the bazaars and began to overturn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In less than five minutes all commerce had been swept from the temple. By the time the near-by Roman guards had appeared on the scene, all was quiet, and the crowds had become orderly; Jesus, returning to the speaker's stand, spoke to the multitude: “You have this day witnessed that which is written in the Scriptures: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173:1.8 (1890.3) But before he could utter other words, the great assembly broke out in hosannas of praise, and presently a throng of youths stepped out from the crowd to sing grateful hymns of appreciation that the profane and profiteering merchandisers had been ejected from the sacred temple. By this time certain of the priests had arrived on the scene, and one of them said to Jesus, “Do you not hear what the children of the Levites say?” And the Master replied,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s of babes and sucklings has praise been perfected’?” And all the rest of that day while Jesus taught, guards set by the people stood watch at every archway, and they would not permit anyone to carry even an empty vessel across the temple courts.

173:1.9 (1890.4)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heard about these happenings, they were dumfounded. All the more they feared the Master, and all the more they determined to destroy him. But they were nonplused. They did not know how to accomplish his death, for they greatly feared the multitudes, who were now so outspoken in their approval of his overthrow of the profane profiteers.

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글자 그대로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행동은 그의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주(主)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예상 밖의 움직임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전체 에피소드에 두루, 단상(壇上) 주변에 내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전 청결을 돕기 위해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이러한 장관을 이루는 사건이, 성문을 통과하는 떠들썩한 행진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승리한 모습으로 도착하였을 때 발생했더라면, 그들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동참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성전 청결은 종교의 상업화된 실천 관행에 대한 주(主)의 태도는 물론,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경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과 모든 부당성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밝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정치, 재정, 또는 성직의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옳지 않은 소수 무리들의 부당하고 노예화하려는 악습에 대항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듯한 태도를 실증 하였다. 자아-보호나 또는 자신들의 훌륭한 일생 프로젝트의 촉진을 위한 일에 자신들의 이상주의 때문에 무력에 의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눈치 빠르고 사악하며 술책을 꾸미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조직을 이루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And all this day, a day of quiet and peace in the temple courts, the people heard Jesus' teaching and literally hung on his words.

173:1.10 (1890.5) This surprising act of Jesus was beyond the comprehension of his apostles. They were so taken aback by this sudden and unexpected move of their Master that they remained throughout the whole episode huddled together near the speaker's stand; they never lifted a hand to further this cleansing of the temple. If this spectacular event had occurred the day before, at the time of Jesus' triumphal arrival at the temple at the termination of his tumultuous procession through the gates of the city, all the while loudly acclaimed by the multitude, they would have been ready for it, but coming as it did, they were wholly unprepared to participate.

173:1.11 (1891.1) This cleansing of the temple discloses the Master's attitude toward commercializing the practices of religion as well as his detestation of all forms of unfairness and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the poor and the unlearned. This episode also demonstrates that Jesus did not look with approval upon the refusal to employ force to protect the majority of any given human group against the unfair and enslaving practices of unjust minorities who may be able to entrench themselves behind political, financial, or ecclesiastical power. Shrewd, wicked, and designing men are not to be permitted to organize themselves for the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those who, because of their idealism, are not disposed to resort to force for self-protection or for the furtherance of their laudable life projects.

제 2 장. 주(主)의 권한에 도전함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였던 일요일에는 유대인 영도자들이 너무 위압되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자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러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건도 주(主)의 체포를 연기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매일같이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고자 결심하였지만,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 결행 시간을 연기하도록 작용하였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이 분개심으로 광포해져서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꺼렸다; 또한 민중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이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산헤드린의 정오 회의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모임에 주(主)의 친구로 참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루빨리 해치워야한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할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다섯 개의 무리들을 뽑아 사람들

2. CHALLENGING THE MASTER'S AUTHORITY

173:2.1 (1891.2) On Sunday the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so overawed the Jewish leaders that they refrained from placing Jesus under arrest. Today, this spectacular cleansing of the temple likewise effectively postponed the Master's apprehension. Day by day the rulers of the Jews were becoming more and more determined to destroy him, but they were distraught by two fears, which conspired to delay the hour of striking.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were unwilling to arrest Jesus in public for fear the multitude might turn upon them in a fury of resentment; they also dreaded the possibility of the Roman guards being called upon to quell a popular uprising.

173:2.2 (1891.3) At the noon session of the Sanhedrin it was unanimously agreed that Jesus must be speedily destroyed, inasmuch as no friend of the Master attended this meeting. But they could not agree as to when and how he should be taken into custody. Finally they agreed upon appointing five

속에 보내어, 그의 가르침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안에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두 시쯤 되어 예수가 “아들관계의 자유”에 대해 강연을 막 시작하였을 때, 이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한 집단이 예수 가까이로 나오면서, 상습적인 태도로서 그를 중단시키며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던 말입니까?”

가르치려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성전에서 모든 장사를 쫓아내신 일과 관련하여, 예수의 특징이었던 색다른 방법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전 통치자들과 유대 산헤드린의 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일이었다. 이들 상인과 환전상들은 모두 최고 통치자들의 직접적인 허락에 따라 운영하였고, 그들의 수입 일부는 곧바로 성전 금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권한이라는 말이 모든 유대인들의 표어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선지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권한 없이, 랍비 학교에서 마땅한 교육을 받음도 없이, 그리고 뒤이어 산헤드린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받음도 없이 감히 주체념케 용감하게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었다. 대중을 위해 감히 가르치면서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체념을 정도로 무식하거나 또는 공공연한 반역 행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산헤드린만이 장로나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예식은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셋 이상의 현존이 있는 장소에서 거행되어야만 했다. 그러한 임명식이 교사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주었고, 또한 그에게 “판결해 달라고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맺고 풀어주는” 재판관으로 활동하도록 자격으로 분별화하였다.

성전의 통치자들은 예수께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도전하면서 이 날 오후 시간에, 그 앞에 나선 것이었다. 예수는 이들이 바로, 가르침에 대한 그의 권한이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 귀신들의 영주에서의 힘에 의해 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쳐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므로 주(主)는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물음에 대한 그의 답변을 시작하였다. 예수는 말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만일 너희가 내게 대답한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자기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들로 부터 받았느냐?”

질문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한 쪽으로 물러가 어떻게 대답하여야 좋을지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였다. 그들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무안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성전 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 자신이 혼동에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실책은 예수께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groups to go out among the people and seek to entangle him in his teaching or otherwise to discredit him in the sight of those who listened to his instruction. Accordingly, about two o'clock, when Jesus had just begun his discourse on “The Liberty of Sonship,” a group of these elders of Israel made their way up near Jesus and, interrupting him in the customary manner, asked this question: “By what authority do you do these things? Who gave you this authority?”

173:2.3 (1891.4) It was altogether proper that the temple rulers and the officers of the Jewish Sanhedrin should ask this question of anyone who presumed to teach and perform in the extraordinary manner which had been characteristic of Jesus, especially as concerned his recent conduct in clearing the temple of all commerce. These traders and money-changers all operated by direct license from the highest rulers, and a percentage of their gains was supposed to go directly into the temple treasury. Do not forget that *authority* was the watchword of all Jewry. The prophets were always stirring up trouble because they so boldly presumed to teach without authority, without having been duly instructed in the rabbinic academies and subsequently regularly ordained by the Sanhedrin. Lack of this authority in pretentious public teaching was looked upon as indicating either ignorant presumption or open rebellion. At this time only the Sanhedrin could ordain an elder or teacher, and such a ceremony had to take place in the presence of at least three persons who had previously been so ordained. Such an ordination conferred the title of “rabbi” upon the teacher and also qualified him to act as a judge, “binding and loosing such matters as might be brought to him for adjudication.”

173:2.4 (1892.1) The rulers of the temple came before Jesus at this afternoon hour challenging not only his teaching but his acts. Jesus well knew that these very men had long publicly taught that his authority for teaching was Satanic, and that all his mighty works had been wrought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Therefore did the Master begin his answer to their question by asking them a counter-question. Said Jesus: “I would also like to ask you one question which, if you will answer me, I likewise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works. The baptism of John, whence was it? Did John get his authority from heaven or from men?”

173:2.5 (1892.2) And when his questioners heard this, they withdrew to one side to take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what answer they might give. They had thought to embarrass Jesus before the multitude, but now they found themselves much confused before all who were assembled at that time in the temple court. And their discomfiture was all the more apparent when they returned to

말했을 때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이 주(主)께 이렇게 대답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의논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면서, 아마도 그가 그의 권한을 요한에게서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군중들 대부분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교사들과 영도자들은 요한의 임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또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예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권한을 위하여 요한에게 간청하고자 한 적이 없었다; 요한도 산헤드린의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한은 자신 속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영원한 최극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반대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시면서, 질문을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그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몇몇치 못한 일을 저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자신의 적일지라도 공평치 못하게 역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적이 없었다. 겉으로는 적당히 둘러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임무에 숨겨져 있는 권한을 모든 듣는 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가 귀신들의 영주의 권한으로 일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힘과 권한으로써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이 유대 영도자들은 그가 산헤드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요한으로부터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으신 반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신의 적들의 노력이 그들 자신에게 작용되어 되돌아가고, 그들의 체면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더욱 망쳐진 것을 짐작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다루는 바로 이러한 주(主)의 재능이야말로 그들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그 날 더 이상의 질문을 시도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더 상의하려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속에서 부정직함과 불성실을 재빨리 간파하였다. 서민들조차도 주(主)의 도덕적인 장엄과, 그의 적들의 의도적인 위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사두개인들이 하여금 바리새인의 편에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때 산헤드린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Jesus, saying: “Concerning the baptism of John, we cannot answer; we do not know.” And they so answered the Master because they had reasoned among themselves: If we shall say from heaven, then will he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and perchance will add that he received his authority from John; and if we shall say from men, then might the multitude turn upon us, for most of them hold that John was a prophet; and so they were compelled to come before Jesus and the people confessing that they, the religious teachers and leaders of Israel, could not (or would not) express an opinion about John’s mission. And when they had spoken, Jesus, looking down upon them,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173:2.6 (1892.3) Jesus never intended to appeal to John for his authority; John had never been ordained by the Sanhedrin. Jesus’ authority was in himself and in his Father’s eternal supremacy.

173:2.7 (1892.4) In employing this method of dealing with his adversaries, Jesus did not mean to dodge the question. At first it may seem that he was guilty of a masterly evasion, but it was not so. Jesus was never disposed to take unfair advantage of even his enemies. In this apparent evasion he really supplied all his hearers with the answer to the Pharisees’ question as to the authority behind his mission. They had asserted that he performed by authority of the prince of devils. Jesus had repeatedly asserted that all his teaching and works were by the power and authority of his Father in heaven. This the Jewish leaders refused to accept and were seeking to corner him into admitting that he was an irregular teacher since he had never been sanctioned by the Sanhedrin. In answering them as he did, while not claiming authority from John, he so satisfied the people with the inference that the effort of his enemies to ensnare him was effectively turned upon themselves and was much to their discredit in the eyes of all present.

173:2.8 (1892.5) And it was this genius of the Master for dealing with his adversaries that made them so afraid of him. They attempted no more questions that day; they retired to take further counsel among themselves. But the people were not slow to discern the dishonesty and insincerity in these questions asked by the Jewish rulers. Even the common folk could not fail to distinguish between the moral majesty of the Master and the designing hypocrisy of his enemies. But the cleansing of the temple had brought the Sadducees over to the side of the Pharisees in perfecting the plan to destroy Jesus. And the Sadducees now represented a majority of the Sanhedrin.

제 3 장. 두 아들의 비유

3. PARABLE OF THE TWO SONS

트집쟁이 바리새인들이 침묵으로 예수 앞에서 있을 때, 그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요한의 임무를 의심하고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 일에 일제히 배척하니, 내가 말하는 한 비유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어떤 위대하고 존중받는 지주(地主)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들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솔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곳으로 갔다. 또한 그가 큰아들을 찾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 하거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신실치 못한 이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떠나자, 그는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묻겠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사람들이 한결같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바로 그렇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세리들과 창기들이 비록 뉘우치라는 부름을 거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길에서의 실수를 알아보고 그리고는 계속하여 하느님의 왕국에 너희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크게 자처하고 있는 너희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요한을 믿은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이었다; 너희들 아무도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의 말을 기쁘게 듣는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개인적으로 경멸하지 않았다. 그가 망신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르침과 실천에 대한 그들의 체계였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았지만, 여기에 새롭고 살아있는 영의 종교와 형식과 전통 그리고 권한으로 가득 찬 옛 종교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열 두 사도들은 시종일관 주(主)의 곁에 서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과정에 끼어들지 않았다. 열 두 사도들은 예수가 육신 속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으시는 기간 동안의 사건들에 대하여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였으나, 유월절 주간 동안 대중을 위한 가르침과 설교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주(主)의 명령에는 모두 순종하였다.

제 4 장.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우두머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상의하기 위하여 물러간 후에, 주(主)는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고, 다른 비유를 말씀하였다:

"어느 선량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173:3.1 (1893.1) As the caviling Pharisees stood there in silence before Jesus, he looked down on them and said: "Since you are in doubt about John's mission and arrayed in enmity against the teaching and the works of the Son of Man, give ear while I tell you a parable: A certain great and respected landholder had two sons, and desiring the help of his sons in the management of his large estates, he came to one of them, saying, 'Son, go work today in my vineyard.' And this unthinking son answered his father, saying, 'I will not go';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When he had found his older son, likewise he said to him, 'Son, go work in my vineyard.' And this hypocritical and unfaithful son answered, 'Yes, my father, I will go.' But when his father had departed, he went not. Let me ask you, which of these sons really did his father's will?"

173:3.2 (1893.2) And the people spoke with one accord, saying, "The first son." And then said Jesus: "Even so; and now do I declare that the publicans and harlots, even though they appear to refuse the call to repentance, shall see the error of their way and go on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who make great pretensions of serving the Father in heaven while you refuse to do the works of the Father. It was not you, the Pharisees and scribes, who believed John, but rather the publicans and sinners; neither do you believe my teaching, but the common people hear my words gladly."

173:3.3 (1893.3) Jesus did not despise the Pharisees and Sadducees personally. It was their systems of teaching and practice which he sought to discredit. He was hostile to no man, but here was occurring the inevitable clash between a new and living religion of the spirit and the older religion of ceremony, tradition, and authority.

173:3.4 (1893.4) All this time the twelve apostles stood near the Master, but they did not in any manner participate in these transactions. Each one of the twelve was reacting in his own peculiar way to the events of these closing days of Jesus' ministry in the flesh, and each one likewise remained obedient to the Master's injunction to refrain from all public teaching and preaching during this Passover week.

4. PARABLE OF THE ABSENT LANDLORD

173:4.1 (1893.5) When the chief Pharisees and the scribes who had sought to entangle Jesus with their questions had finished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two sons, they withdrew to take further counsel, and the Master, turning his attention to the listening multitude, told another parable:

173:4.2 (1893.6) "There was a good man who was a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파수자들을 위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겼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오자, 세를 받기 위하여 하인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상의하여,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과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하인들을 공격하여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돌을 던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더 신임하는 다른 하인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청지기를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죽였다. 그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많은 하인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인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고, 그 집주인은 이렇게 대접받자, 이 배은망덕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나의 하인들은 학대하였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틀림없이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다. 그들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죽였는지를 포도원 주인이 들었을 때, 이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비유와 예수의 질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때에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정직한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이 비유가 유대 나라와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대접, 그리고 지금 예수와 왕국 복음을 거부하려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에 잠겨서, "하느님,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군중 속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척하였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으며, 사람의 아들을 거부하기로 너희 가슴속에 작정한 것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에서 있는 사제들과 장로들을 자세히 둘러보시면서, 예수는 말씀하였다. "건축자들이 쓰기를 거절한 돌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주춧돌로 삼았다는 말씀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하느님의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서, 복된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둘에는 하나의 신비가 있으니, 누구라도 그

householder, and he planted a vineyard. He set a hedge about it, dug a pit for the wine press, and built a watchtower for the guards. Then he let this vineyard out to tenants while he went on a long journey into another country. And when the season of the fruits drew near, he sent servants to the tenants to receive his rental. But they took counsel among themselves and refused to give these servants the fruits due their master; instead, they fell upon his servants, beating one, stoning another, and sending the others away empty-handed. And when the householder heard about all this, he sent other and more trusted servants to deal with these wicked tenants, and these they wounded and also treated shamefully. And then the householder sent his favorite servant, his steward, and him they killed. And still, in patience and with forbearance, he dispatched many other servants, but none would they receive. Some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and when the householder had been so dealt with, he decided to send his son to deal with these ungrateful tenants, saying to himself, 'They may mistreat my servants, but they will surely show respect for my beloved son.' But when these unrepentant and wicked tenants saw the son,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and then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laid hold on him, and after casting him out of the vineyard, they killed him. When the lord of that vineyard shall hear how they have rejected and killed his son, what will he do to those ungrateful and wicked tenants?"

173:4.3 (1894.1) And when the people heard this parable and the question Jesus asked, they answered, "He will destroy those miserable men and let out his vineyard to other and honest farmers who will render to him the fruits in their season." And when some of them who heard perceived that this parable referred to the Jewish nation and its treatment of the prophets and to the impending rejection of Jesus 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y said in sorrow, "God forbid that we should go on doing these things."

173:4.4 (1894.2) Jesus saw a group of the Sadducees and Pharisees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crowd, and he paused for a moment until they drew near him, when he said: "You know how your fathers rejected the prophets, and you well know that you are set in your hearts to reject the Son of Man." And then, looking with searching gaze upon those priests and elders who were standing near him, Jesus said: "Did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 abou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and which, when the people had discovered it, was made into the cornerstone? And so once more do I warn you that, if you continue to reject this gospel, presently will the kingdom of God be taken away from you and be given to a people willing to receive the good news and to bring forth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there is a

위에 떨어지고 한편으로 그로서 그가 가루가 되었다 해도 그는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는 먼지로 가루가 될 것이고 그의 재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듣자, 예수가 자기들과 그 밖의 유대 영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했다.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싶었으나, 군중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主)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자기들끼리 더 상의하려고 물러갔다. 그리고 그 날 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음 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손을 잡았다.

제 5 장. 결혼 잔치 비유

서기관들과 통치자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는 모인 군중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혼인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어, ‘결혼 잔치가 왕궁에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오기를 거부하였다.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다른 하인들과 메신저들을 보내면서,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준비된 나의 만찬을 보라고 말하라. 나의 소들과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앞으로 있을 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들은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혹은 농장으로 혹은 그릇을 굽는 곳으로 혹은 작업장으로, 각기 자기 일터로 가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하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메신저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그들 중의 일부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왕은 자신이 선택한 손님들, 심지어는 첫 번째 초청에 응하여 혼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켜, 자신이 선택한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진노하였다. 그러자 모욕을 당한 이 왕은 자신의 집단들과 동맹국 집단들에게 명하여 반란을 일으킨 살인자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의 도시를 불사르도록 하였다.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마친 후, 결혼 잔치를 위해 다른 날을 정하고 메신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함당치 않은 자들이었으니; 지금 즉시 거리들과 큰길들 그리고 도시 밖으로라도 가

mystery about this stone, seeing that whoso falls upon it, while he is thereby broken in pieces, shall be saved; but on whomsoever this stone falls, he will be ground to dust and his ashes scattered to the four winds.”

173:4.5 (1894.3) When the Pharisees heard these words, they understood that Jesus referred to themselves and the other Jewish leaders. They greatly desired to lay hold on him then and there, but they feared the multitude. However, they were so angered by the Master's words that they withdrew and held further counsel among themselves as to how they might bring about his death. And that night both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joined hands in the plan to entrap him the next day.

5. PARABLE OF THE MARRIAGE FEAST

173:5.1 (1894.4) After the scribes and rulers had withdrawn, Jesus addressed himself again to the assembled crowd and spoke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He said:

173:5.2 (1894.5)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likened to a certain king who made a marriage feast for his son and dispatched messengers to call those who had previously been invited to the feast to come, saying, ‘Everything is ready for the marriage supper at the king's palace.’ Now, many of those who had once promised to attend, at this time refused to come. When the king heard of these rejections of his invitation, he sent other servants and messengers, saying: ‘Tell all those who were bidden, to come, for, behold, my dinner is ready. My oxen and my fatlings are killed, and all is in readiness for the celebration of the forthcoming marriage of my son.’ But again did the thoughtless make light of this call of their king, and they went their ways, one to the farm, another to the pottery, and others to their merchandise. Still others were not content thus to slight the king's call, but in open rebellion they laid hands on the king's messengers and shamefully mistreated them, even killing some of them. And when the king perceived that his chosen guests, even those who had accepted his preliminary invitation and had promised to attend the wedding feast, had finally rejected his call and in rebellion had assaulted and slain his chosen messengers, he was exceedingly wroth. And then this insulted king ordered out his armies and the armies of his allies and instructed them to destroy these rebellious murderers and to burn down their city.

173:5.3 (1895.1) “And when he had punished those who spurned his invitation, he appointed yet another day for the wedding feast and said to his messengers: ‘They who were first bidden to the wedding were not worthy; so go now into the

서 이방인일지라도 눈에 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 하인들은 큰길들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니다가며, 발견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 선량한 자들이나 불량한 자들,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혼인 자리가 기꺼이 응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자기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왕은 모든 손님들에게 혼인 예복을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적하며 말했다; ‘친구여, 이러한 때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나의 접대실에 들어왔단 말이나?’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유구무언이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경솔한 이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어, 나의 환대를 거절하고 나의 초청을 거절한 모든 다른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라. 나의 초청을 기쁘게 받고, 모두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손님용 예복을 입음으로써 내게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가 군중을 흩어 보내려고 할 때, 동정심 많은 어떤 신자가 군중들 사이를 헤치면서 그에게 나아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초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주(主)는, “오직 한 가지 표적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거의 오십 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의 부활 후에야 그가 말씀하였던 것을 상기하였다.

이 날 오후 4 시 경,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손짓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떠나 저녁 식사와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베다니로 가고자함을 알려 주었다. 올리브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예수는 남은 유월절 주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내일 성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라고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다음 날 아침, 갯세마네의 대중용 야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베다니의 시몬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땅에 있는 언덕 골짜기에 그들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월요일 밤에 올리브 산기슭을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들은 모두 다시 침묵 속에 있었다. 이 열 두 사람들은 전과는 달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침 일찍 벌어졌던 극적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parting of the ways and into the highways and even beyond the borders of the city, and as many as you shall find, bid even these strangers to come in and attend this wedding feast.’ And then these servants went out into the highways and the out-of-the-way places, and they gathered together as many as they found, good and bad, rich and poor, so that at last the wedding chamber was filled with willing guests. When all was ready, the king came in to view his guests, and much to his surprise he saw there a man without a wedding garment. The king, since he had freely provided wedding garments for all his guests, addressing this man, said: ‘Friend, how is it that you come into my guest chamber on this occasion without a wedding garment?’ And this unprepared man was speechless. Then said the king to his servants: ‘Cast out this thoughtless guest from my house to share the lot of all the others who have spurned my hospitality and rejected my call. I will have none here except those who delight to accept my invitation, and who do me the honor to wear those guest garments so freely provided for all.’”

173:5.4 (1895.2) After speaking this parable, Jesus was about to dismiss the multitude when a sympathetic believer, making his way through the crowds toward him, asked: “But, Master, how shall we know about these things? how shall we be ready for the king’s invitation? what sign will you give us whereby we shall know that you are the Son of God?” And when the Master heard this, he said, “Only one sign shall be given you.” And then, pointing to his own body, he continued,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But they did not understand him, and as they dispersed, they talked among themselves, saying, “Almost fifty years has this temple been in building, and yet he says he will destroy it and raise it up in three days.” Even his own apostles did not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is utterance, but subsequently, after his resurrection, they recalled what he had said.

173:5.5 (1895.3) About four o’clock this afternoon Jesus beckoned to his apostles and indicated that he desired to leave the temple and to go to Bethany for their evening meal and a night of rest. On the way up Olivet Jesus instructed Andrew, Philip, and Thomas that, on the morrow, they should establish a camp nearer the city which they could occupy during the remainder of the Passover week. In compliance with this instruction the following morning they pitched their tents in the hillside ravine overlooking the public camping park of Gethsemane, on a plot of ground belonging to Simon of Bethany.

173:5.6 (1896.1) Again it was a silent group of Jews who made their way up the western slope of Olivet on this Monday night. These twelve men, as never before, were beginning to sense that something tragic was about to happen. While the dramatic

그들은 주(主)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강대한 힘을 현시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오후 내내 있었던 사건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예수의 가르침이 확실하게 거부되는 한심한 장면만을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도들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극도의 불확실함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다. 방금 지나간 날에 있었던 사건들과 절박한 운명 사이에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 모두는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꼈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알페오 쌍둥이 형제들마저도 주(主)의 일생이 최종적인 최고점을 향하여 빨리 움직이는 사건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우치게 되었다.

cleansing of the temple during the early morning had aroused their hopes of seeing the Master assert himself and manifest his mighty powers, the events of the entire afternoon only operated as an anticlimax in that they all pointed to the certain rejection of Jesus' teaching by the Jewish authorities. The apostles were gripped by suspense and were held in the firm grasp of a terrible uncertainty. They realized that only a few short days could intervene between the events of the day just passed and the crash of an impending doom. They all felt that something tremendous was about to happen, but they knew not what to expect. They went to their various places for rest, but they slept very little. Even the Alpheus twins were at last aroused to the realization that the events of the Master's life were moving swiftly toward their final culmination.

제 174 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 173

유랜시아 책

17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4 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섹션

소개

제 1 장. 신성한 용서

제 2 장.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제 3 장. 사두개인들과 부활

제 4 장. 큰 계명

제 5 장. 호기심을 보이는 그리스인

소개

화요일 아침 7시경에 예수는 사도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다른 이십 여명의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시몬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이 때 나사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페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의 피신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셨으며, 나사로는 후에 그곳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선교 운동에 가담하였다. 또한 예수는 나이가 많은 시몬에게도 작별을 고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정식으로 강론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이날 아침 열두 사도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인사하였다. 그는 안드레에게 “곧 다가올 사건들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라. 형제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기가 꺾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베드로에게 “육신의 무력이나, 쇠로 된 무기위에 내 믿음을 머물게 하지 마라. 영원한 바위의 그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야고보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해라. 신앙에 굳게 서라,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요한에게는 “너그로움을 갖도록 하고; 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라; 관용으로 있으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PAPER 174

TUESDAY MORNING IN THE
TEMPLE

SECTIONS

Introduction

1. Divine Forgiveness

2. Questions by the Jewish Rulers

3. The Sadducees and the Resurrection

4. The Great Commandment

5. The Inquiring Greeks

INTRODUCTION

174:0.1 (1897.1) ABOUT seven o'clock on this Tuesday morning Jesus met the apostles, the women's corps, and some two dozen other prominent disciples at the home of Simon. At this meeting he said farewell to Lazarus, giving him that instruction which led him so soon to flee to Philadelphia in Perea, where he later became connected with the missionary movement having its headquarters in that city. Jesus also said goodbye to the aged Simon, and gave his parting advice to the women's corps, as he never again formally addressed them.

174:0.2 (1897.2) This morning he greeted each of the twelve with a personal salutation. To Andrew he said: "Be not dismayed by the events just ahead. Keep a firm hold on your brethren and see that they do not find you downcast." To Peter he said: "Put not your trust in the arm of flesh nor in weapons of steel. Establish yourself on the spiritual foundations of the eternal rocks." To James he said: "Falter not because of outward appearances. Remain firm in your faith, and you shall soon know of the reality of that which you believe." To John he said: "Be gentle; love even your enemies; be tolerant. And remember that I have trusted you with many things." To Nathaniel

너를 신뢰하였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너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왕국 대사로서의 임무에 진실하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을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마태에게는 “너를 왕국에 받아들여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에게 약속된 영원한 보상을 어떤 사람도 속임으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필사자 본성의 성향들을 잘 견뎌온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확고하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완결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모든 진실한 대사들이 결국에는 왕국 너머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알패오 쌍둥이들에게는 “너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가슴속에 있는 감동에 충실하고, 위대한 사람이나 태도가 변화하는 민중들에 의지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몬 켈로페에게는 “시몬아, 네가 실망으로 깃뚫혀질지도 모르지만, 네 영은 네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내 영이 네게 가르쳐줄 것이다. 영의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재이며 물질적 그림자에 유혹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롯 유다에게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또한 네가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기도하였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 아침의 매끄러운 길과 조롱의 독화살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인사들을 마친 후에, 예수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다른 사도들은 주(主)가 육체로 계시는 남은 기간 동안 본부로 사용할, 그리고 그 날 밤을 지낼 갓세마네 야영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올리브 산기슭을 반쯤 내려가시다 잠시 멈추어서시고 네 사도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였다.

제 1 장. 신성한 용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지난 며칠 동안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로 합의하였고, 베드로는 이때를 주(主)의 조언을 확실하게 하는 적절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는 찬미와 경배의 차이에 관한 대화에 끼어들어서 물었다: “주(主)여, 야고보와 저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치셨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

he said: “Judge not by appearances; remain firm in your faith when all appears to vanish; be true to your commission as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To Philip he said: “Be unmoved by the events now impending. Remain unshaken, even when you cannot see the way. Be loyal to your oath of consecration.” To Matthew he said: “Forget not the mercy that received you into the kingdom. Let no man cheat you of your eternal reward. As you have withstood the inclinations of the mortal nature, be willing to be steadfast.” To Thomas he said: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just now you must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Doubt not that I am able to finish the work I have begun, and that I shall eventually see all of my faithful ambassadors in the kingdom beyond.” To the Alpheus twins he said: “Do not allow the things which you cannot understand to crush you. Be true to the affections of your hearts and put not your trust in either great men or the changing attitude of the people. Stand by your brethren.” And to Simon Zelotes he said: “Simon, you may be crushed by disappointment, but your spirit shall rise above all that may come upon you. What you have failed to learn from me, my spirit will teach you. Seek the true realities of the spirit and cease to be attracted by unreal and material shadows.” And to Judas Iscariot he said: “Judas, I have loved you and have prayed that you would love your brethren. Be not weary in well doing; and I would warn you to beware the slippery paths of flattery and the poison darts of ridicule.”

174:0.3 (1897.3) And when he had concluded these greetings, he departed for Jerusalem with Andrew, Peter, James, and John as the other apostles set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Gethsemane camp, where they were to go that night, and where they made their headquarters for the remainder of the Master's life in the flesh. About halfway down the slope of Olivet Jesus paused and visited more than an hour with the four apostles.

1. DIVINE FORGIVENESS

174:1.1 (1898.1) For several days Peter and James had been engaged in discussing their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the Master's teaching regarding the forgiveness of sin. They had both agreed to lay the matter before Jesus, and Peter embraced this occasion as a fitting opportunity for securing the Master's counsel. Accordingly, Simon Peter broke in on the conversation dealing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praise and worship, by asking: “Master, James and I are not in accord regarding your teachings having to do with the forgiveness of sin. James claims you teach that the Father forgives us even before we ask him, and I maintain that repentance and confession must precede the

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는 잠시 침묵한 후, 네 사도들 모두를 의 미심장하게 바라보시고 나서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창조체와 창조자 사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친밀하고도 사랑 넘치는 관계에 대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현명한 부모들이 갖는 동정심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자녀에게 용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결코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사랑의 태도가 동반된 납득하는 관계는, 부모에 의한 용서로 자녀가 하는 회개를 나중에 다시 조절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저들 불화를 실질적으로 막아 준다.

“아버지의 하나의 부분이 자녀 안에 살아있다. 아버지는 자녀-부모의 관계에 연결된 모든 일들의 납득에서 우선권과 우월성을 누린다. 부모는 보다 진보된 아버지의 성숙성, 나이 많은 부모의 원숙한 체험에 비추어 자녀의 미숙함을 볼 수 있다. 지상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경우에, 신성한 부모는 사랑으로 납득하는 수용능력과 동정심에서의 무한성과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신성한 용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납득 속에, 자녀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에 관여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완전한 지식 속에 본래부터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에, 그토록 납득하는 자비를 어김없이 체현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동료들의 내적인 충동을 납득할 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납득하고 그리고 명백한 그릇된 행동을 용서하는 이 수용능력은 하느님과-같음이다. 만일 너희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것이 그 길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납득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일시적인 오해가 너희를 명백하게 갈라 놓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그러한 길이다. 자녀-아버지 관계의 깊이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충분한 승인으로부터 죄의식을 동반한 분리 느낌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그 어떤 분리도 의식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의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체험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식에서의 하나의 부분이 아니다.

“너희 동료들을 용서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능력함은 너희의 미숙함을 가늠하고, 그리고 어른다운 동정심, 납득 그리고 사랑을 달성하는 데에 대한 너희의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너희 자녀와 너희 동료들의 참된 소망과 내적 본성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무지함에 정비례하여, 너희는 그만큼 원한을 품고 그리고 앙갚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생명의 신

forgiveness. Which of us is right? what do you say?”

174:1.2 (1898.2) After a short silence Jesus looked significantly at all four and answered: “My brethren, you err in your opinions because you do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ose intimate and loving relations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Creator, between man and God. You fail to grasp that understanding sympathy which the wise parent entertains for his immature and sometimes erring child. It is indeed doubtful whether intelligent and affectionate parents are ever called upon to forgive an average and normal child. Understanding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attitudes of love effectively prevent all those estrangements which later necessitate the readjustment of repentance by the child with forgiveness by the parent.

174:1.3 (1898.3) “A part of every father lives in the child. The father enjoys priority and superiority of understanding in all matters connected with the child-parent relationship. The parent is able to view the immaturity of the child in the light of the more advanced parental maturity, the riper experience of the older partner. With the earthly child and the heavenly Father, the divine parent possesses infinity and divinity of sympathy and capacity for loving understanding. Divine forgiveness is inevitable; it is inherent and inalienable in God's infinite understanding, in his perfect knowledge of all that concerns the mistaken judgment and erroneous choosing of the child. Divine justice is so eternally fair that it unfailingly embodies understanding mercy.

174:1.4 (1898.4) “When a wise man understands the inner impulses of his fellows, he will love them. And when you love your brother, you have already forgiven him. This capacity to understand man's nature and forgive his apparent wrongdoing is Godlike. If you are wise parents, this is the way you will love and understand your children, even forgive them when transient misunderstanding has apparently separated you. The child, being immature and lacking in the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epth of the child-father relationship, must frequently feel a sense of guilty separation from a father's full approval, but the true father is never conscious of any such separation. Sin is an experience of creature consciousness; it is not a part of God's consciousness.

174:1.5 (1898.5) “Your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forgive your fellows is the measure of your immaturity, your failure to attain adult sympathy, understanding, and love. You hold grudges and nurse vengefulness in direct proportion to your ignorance of the inner nature and true longings of your children and your fellow beings. Love is the outworking of the divine and inner urge of life. It is

성하고 내적인 충동이 밖으로 나와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납득함에 기초를 두며, 이기심이 없는 봉사로서 양육되고, 지혜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제 2 장.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월요일 저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서 선택된 오십여 명의 영도자들과 산헤드린 회의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 일치된 의견은, 예수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를 체포하여 법정으로 데려오기 전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여러 무리의 유식한 사람들이 선정되어 다음 날 아침 성전에 가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황하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도, 유월절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망신시키자는 이 작업에 모두 연합하였다.

화요일 아침, 예수가 성전 뜰에 도착해서서 가르치기 시작하여 몇 마디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리 연습하였던, 학원들로부터 온 젊은 학생들 한 무리가 앞으로 나아왔으며 그들 중의 대변자가 예수께 말했다; “주(主)여, 우리는 당신이 의로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고, 당신이 진리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시며,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학생일 따름이고,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저희들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저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가 내야합니까? 아니면 내지 않아야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고서 말씀하기를, “이 동전 뒤에 있는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시저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젊은 서기관들과, 그들과 한 패인 헤롯 당원들은 그의 현존으로부터 떠났으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까지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하였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그 젊은이들도 주(主)의 예상치 못하였던 총명성있는 답변에 매우 경탄하였다.

통치자들은 하루 전 날 성직(聖職)에 관련된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이제는 세속적인 권한을 손상시킬만한 문제에 그를 끌어들이

founded on understanding, nurtured by unselfish service, and perfected in wisdom.”

2. QUESTIONS BY THE JEWISH RULERS

174:2.1 (1899.1) On Monday evening there had been held a council between the Sanhedrin and some fifty additional leaders selected from among the scribes, Pharisees, and the Sadducees. It was the consensus of this meeting that it would be dangerous to arrest Jesus in public because of his hold upon the affections of the common people. It was also the opinion of the majority that a determined effort should be made to discredit him in the eyes of the multitude before he should be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Accordingly, several groups of learned men were designated to be on hand the next morning in the temple to undertake to entrap him with difficult questions and otherwise to seek to embarrass him before the people. At last, the Pharisees, Sadducees, and even the Herodians were all united in this effort to discredit Jesus in the eyes of the Passover multitudes.

174:2.2 (1899.2) Tuesday morning, when Jesus arrived in the temple court and began to teach, he had uttered but few words when a group of the younger students from the academies, who had been rehearsed for this purpose, came forward and by their spokesman addressed Jesus: “Master, we know you are a righteous teacher, and we know that you proclaim the ways of truth, and that you serve only God, for you fear no man, and that you are no respecter of persons. We are only students, and we would know the truth about a matter which troubles us; our difficulty is this: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ribute to Caesar? Shall we give or shall we not give?” Jesus, perceiving their hypocrisy and craftiness, said to them: “Why do you thus come to tempt me? Show me the tribute money, and I will answer you.” And when they handed him a denarius, he looked at it and said, “Whose image and superscription does this coin bear?” And when they answered him, “Caesar’s,” Jesus said, “Render 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render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174:2.3 (1899.3) When he had thus answered these young scribes and their Herodian accomplices, they withdrew from his presence, and the people, even the Sadducees, enjoyed their discomfiture. Even the youths who had endeavored to entrap him marveled greatly at the unexpected sagacity of the Master’s answer.

174:2.4 (1899.4) The previous day the rulers had sought to trip him before the multitude on matter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having failed, they now sought to involve him in a damaging

고자 하였다. 이 때 빌라도와 헤롯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예수의 적들은 그것을 알고서, 만일 그가 감히 시지에게 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도록 대답하면, 즉시 로마 당국자들에게 가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를 씌우고자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가 만일 여러 가지 말로써 그 세금을 내도록 충고한다면, 그러한 말이 유대인 청중들의 국가적인 자부심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이용하여, 군중들의 호의와 선한 뜻을 이간시키고자 하였다.

예수의 적들의 이러한 모든 의도들이 실패한 것은, “화폐의 권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수반한다.”는 것이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만든 산헤드린의 잘 알려진 관정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였다. 그들의 질문에 “하지 마라.”라는 대답은 반란을 선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하라”고 대답하면 당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주(主)는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중적으로 대답하는 지혜를 동원하였을 뿐이었다. 예수는 결코 회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을 항상 현명하게 다루었다.

제 3 장. 사두개인들과 부활

예수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리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지식 있고 교활한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들의 대변자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주(主)여, 모세의 율법에, 만일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자손을 낳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동생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섯 명의 동생들이 모두 그 여인을 취하였지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죽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진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군다나 죽은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자식을 낳으려하는 이런 실천 관행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사문화(死文化)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discussion of civil authority. Both Pilate and Herod were in Jerusalem at this time, and Jesus' enemies conjectured that, if he would dare to advise against the payment of tribute to Caesar, they could go at once before the Roman authorities and charge him with sedition. On the other hand, if he should advise the payment of tribute in so many words, they rightly calculated that such a pronouncement would greatly wound the national pride of his Jewish hearers, thereby alienating the good will and affection of the multitude.

174:2.5 (1899.5) In all this the enemies of Jesus were defeated since it was a well-known ruling of the Sanhedrin, made for the guidance of the Jews dispersed among the gentile nations, that the “right of coinage carried with it the right to levy taxes.” In this manner Jesus avoided their trap. To have answered “No” to their question would have been equivalent to inciting rebellion; to have answered “Yes” would have shocked the deep-rooted nationalist sentiments of that day. The Master did not evade the question; he merely employed the wisdom of making a double reply. Jesus was never evasive, but he was always wise in his dealings with those who sought to harass and destroy him.

3. THE SADDUCEES AND THE RESURRECTION

174:3.1 (1900.1) Before Jesus could get started with his teaching, another group came forward to question him, this time a company of the learned and crafty Sadducees. Their spokesman, drawing near to him, said: “Master, Moses said that if a married man should die, leaving no children, his brother should take the wife and raise up seed for the deceased brother. Now there occurred a case where a certain man who had six brothers died childless; his next brother took his wife but also soon died, leaving no children. Likewise did the second brother take the wife, but he also died leaving no offspring. And so on until all six of the brothers had had her, and all six of them passed on without leaving children. And then, after them all, the woman herself died. Now, what we would like to ask you is this: In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all seven of these brothers had her?”

174:3.2 (1900.2) Jesus knew, and so did the people, that these Sadducees were not sincere in asking this question because it was not likely that such a case would really occur; and besides, this practice of the brothers of a dead man seeking to beget children for him was practically a dead letter at this time among the Jews. Nevertheless, Jesus condescended to reply to their mischievous

말씀했다; “너희들 모두는 성서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살게 하는 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의 부활을 거치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진보과정 안으로 부활한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신 것을 선포한다. 너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고, 자식을 낳으며, 너희의 필사자 실존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자, 사두개인들은 물러갔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제심을 잃고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主)여,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잘 대답하였습니까.”라고 외치기까지 하였다. 사두개인들은 감히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신기하게 여겼다.

예수가 사두개인들을 대하면서 모세만을 언급한 것은, 이 종교적인 정치 분파가 모세의 경전들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의 책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신조적인 독단론의 기초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주(主)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필사 창조체들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였지만, 인간의 몸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쑥은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인 박해가 대중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동정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여 위축되게 하고자 하였다.

제 4 장. 큰 계명

또 다른 무리의 사두개인들이 천사들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혼란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었지만, 부활과 관련된 질문들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자기 동료들의 숙명을 보자, 그들은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여 침묵을 지켰으며; 질문하지 않고 물러갔다. 혼란시키는 이러한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연관한 바리새인들, 서기

question. He said: “You all do err in asking such questions because you know neither the Scriptures nor the living power of God. You know that the sons of this world can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that they who are accounted worthy to attain the worlds to com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Those who experience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re more like the angels of heaven, and they never die. These resurrected ones are eternally the sons of God; they are the children of light resurrected into the progress of eternal life. And even your Father Moses understood this, for, in connection with his experiences at the burning bush, he heard the Father say,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so, along with Moses, do I declare that my Father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In him you all do live, reproduce, and possess your mortal existence.”

174:3.3 (1900.3) When Jesus had finished answering these questions, the Sadducees withdrew, and some of the Pharisees so far forgot themselves as to exclaim, “True, true, Master, you have well answered these unbelieving Sadducees.” The Sadducees dared not ask him any more questions, and the common people marveled at the wisdom of his teaching.

174:3.4 (1900.4) Jesus appealed only to Moses in his encounter with the Sadducees because this religio-political sect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only the five so-called Books of Moses; they did not allow that the teachings of the prophets were admissible as a basis of doctrinal dogmas. The Master in his answer, though positively affirming the fact of the survival of mortal creatures by the technique of the resurrection, did not in any sense speak approvingly of the Pharisaic beliefs in the resurrection of the literal human body. The point Jesus wished to emphasize was: That the Father had said, “I am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not I was their God.

174:3.5 (1900.5) The Sadducees had thought to subject Jesus to the withering influence of *ridicule*, knowing full well that persecution in public would most certainly create further sympathy for him in the minds of the multitude.

4. THE GREAT COMMANDMENT

174:4.1 (1901.1) Another group of Sadducees had been instructed to ask Jesus entangling questions about angels, but when they beheld the fate of their comrades who had sought to entrap him with question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they very wisely decided to hold their peace; they retired without asking a question. It was the prearranged

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미리 계획된 술책이었으며,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동시에 사람들을 동요케 하는 그의 가르침들을 선포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 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대변자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主)여, 저는 율법사입니다. 큰 계명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계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것이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오, 주님(主)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 이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 이 두 계명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하여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그 율법사가 알아차리고, 주(主)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主)여,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잘 대답하였다; 모든 가슴과 뜻과 힘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다; 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나의 친구여, 네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가 이 율법사에게 “왕국에서 멀리 않다”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날 밤 그가 겔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主)의 야영지에 갔으며, 왕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고, 요시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아브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두 세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려고 왔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책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정오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수는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질문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

plan of the confederated Pharisees, scribes, Sadducees, and Herodians to fill up the entire day with these entangling questions, hoping thereby to discredit Jesus before th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effectively to prevent his having any time for the proclamation of his disturbing teachings.

174:4.2 (1901.2) Then came forward one of the groups of the Pharisees to ask harassing questions, and the spokesman, signaling to Jesus, said: “Master, I am a lawyer, and I would like to ask you which, in your opinion, is the greatest commandment?” Jesus answered: “There is but one commandment, and that one is the greatest of all, and that commandment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an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And the second commandment is like this first; indeed, it springs directly therefrom, and it is: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174:4.3 (1901.3) When the lawyer perceived that Jesus had answered no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concept of Jewish religion, but that he had also answered wisely in the sight of the assembled multitude, he thought it the better part of valor openly to commend the Master’s reply. Accordingly, he said: “Of a truth, Master, you have well said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ne beside him; and that to love him with all the heart, understanding, and strength, and also to love one’s neighbor as one’s self,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and we are agreed that this great commandment is much more to be regarded than all th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the lawyer answered thus discreetly, Jesus looked down upon him and said, “My friend, I perceive that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174:4.4 (1901.4) Jesus spoke the truth when he referred to this lawyer as being “not far from the kingdom,” for that very night he went out to the Master’s camp near Gethsemane, professed faith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as baptized by Josiah, one of the disciples of Abner.

174:4.5 (1901.5) Two or three other group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ere present and had intended to ask questions, but they were either disarmed by Jesus’ answer to the lawyer, or they were deterred by the discomfiture of all who had undertaken to ensnare him. After this no man dared to ask him another question in public.

174:4.6 (1901.6) When no more questions were forthcoming, and as the noon hour was near, Jesus did not resume his teaching but was content merely to ask the Pharisees and their associates a question. Said Jesus: “Since you

다. 너희는 해방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서기관 하나가 대답하였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이야 아니냐에 대해서 사도들 사이에서조차도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가 아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였다. “만일 해방자가 정말로 다윗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에서, 그 자신이 영으로 말하기를 ‘주님이 내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너는 내 오른 편에 앉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만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통치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두머리 사제들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한 이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주(主)가 죽으신 후에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메시아 대신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라고 바꿈으로써 곤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다.

조금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주(主)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였었지만;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사두개인들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심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행동들을 멈추게 하려고 연합된 노력 안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견해 차이들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보통 사람들은 기쁘게 그의 말씀을 들었다.

제 5 장. 호기심을 보이는 그리스인

정오 무렵에, 빌립이 겔세마네 근처에 그 날 설치된 새 야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와 아텐 그리고 로마에서 온 믿는 그리스인들 무리들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으며, 그 대변자는 이 사도에게 말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리켜 주었으므로; 우리가 당신께 왔는데, 선생님, 당신의 주(主)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은 시장 바닥에서 눈에 띄는 이 그리스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예수가 열 두 사도들 모두에게 유월절 주간 동안에는 어떤 대중을 위한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너무도 확실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당황하였다. 또한 그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혼란케 되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나 아니면 가까이 사는 잘 아는 이방인들이었다면, 그가 눈엣 정도로 그렇게 찢절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이 그리스인들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급히 사라지자 그들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안에서 그는 안드레와 다른 사도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ask no more questions, I would like to ask you one. What do you think of the Deliverer? That is, whose son is he?” After a brief pause one of the scribes answered, “The Messiah is the son of David.” And since Jesus knew that there had been much debate, even among his own disciples, as to whether or not he was the son of David, he asked this further question: “If the Deliverer is indeed the son of David, how is it that, in the Psalm which you accredit to David, he himself, speaking in the spirit, say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on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the footstool of your feet.’ If David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Although the rulers, the scribes, and the chief priests made no reply to this question, they likewise refrained from asking him any more questions in an effort to entangle him. They never answered this question which Jesus put to them, but after the Master’s death they attempted to escape the difficulty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Psalm so as to make it refer to Abraham instead of the Messiah. Others sought to escape the dilemma by disallowing that David was the author of this so-called Messianic Psalm.

174:4.7 (1902.1) A short time back the Pharisees had enjoyed the manner in which the Sadducees had been silenced by the Master; now the Sadducees were delighted by the failure of the Pharisees; but such rivalry was only momentary; they speedily forgot their time-honored differences in the united effort to stop Jesus’ teachings and doings. But throughout all of these experiences the common people heard him gladly.

5. THE INQUIRING GREEKS

174:5.1 (1902.2) About noontime, as Philip was purchasing supplies for the new camp which was that day being established near Gethsemane, he was accosted by a delegation of strangers, a group of believing Greeks from Alexandria, Athens, and Rome, whose spokesman said to the apostle: “You have been pointed out to us by those who know you; so we come to you, Sir, with the request to see Jesus, your Master.” Philip was taken by surprise thus to meet these prominent and inquiring Greek gentiles in the market place, and, since Jesus had so explicitly charged all of the twelve not to engage in any public teaching during the Passover week, he was a bit perplexed as to the right way to handle this matter. He was also disconcerted because these men were foreign gentiles. If they had been Jews or near-by and familiar gentiles, he would not have hesitated so markedly. What he did was this: He asked these Greeks to remain right where they were. As he hastened away, they supposed that he went in search of Jesus, but in reality he hurried off to the home of Joseph, where he knew Andrew and the other apostles were at lunch; and calling Andrew

생각되는 요셉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으며; 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내어, 그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안드레와 함께 돌아왔다.

빌립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였기 때문에, 안드레와 그 그리스인들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고, 예수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도들과 여러 명의 수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 가득한-친절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정말로 너희들 대부분은 스스로 나의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들의 영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代價) 없이 선포하였다; 영 속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해방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아들 됨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공포에 가득한 이 사람 아들들에게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님, 누가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은 계시되었습니까?’라고 쓴 그의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하였다. 나의 민족의 영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않으려고 하며,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눈 자가 될 까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다. 모두 것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며;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어 왔다. 지금 이 방 안에는 한 때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또는 국가 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는 하느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안전과 충성심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 방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여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왕국의 관련사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참여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것은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들 중에 삼십 명은 왕국에 들어가도록 선정되었다.

이 때 그들 앞에 서신 예수는 한 섭리시대가 끝나고 다음 섭리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주(主)는 그 그리스인들을 바라보시면서,

out, he explained the purpose of his coming, and then, accompanied by Andrew, he returned to the waiting Greeks.

174:5.2 (1902.3) Since Philip had about finished the purchasing of supplies, he and Andrew returned with the Greeks to the home of Joseph, where Jesus received them; and they sat near while he spoke to his apostles and a number of leading disciples assembled at this luncheon. Said Jesus:

174:5.3 (1902.4) “My Father sent me to this world to reveal his loving-kindness to the children of men, but those to whom I first came have refused to receive me. True, indeed, many of you have believed my gospel for yourselves, but the children of Abraham and their leaders are about to reject me, and in so doing they will reject Him who sent me. I have freely proclaimed the gospel of salvation to this people; I have told them of sonship with joy, liberty, and life more abundant in the spirit. My Father has done many wonderful works among these fear-ridden sons of men. But truly did the Prophet Isaiah refer to this people when he wrote: ‘Lord, who has believed our teachings? And to whom has the Lord been revealed?’ Truly have the leaders of my people deliberately blinded their eyes that they see not, and hardened their hearts lest they believe and be saved. All these years have I sought to heal them of their unbelief that they might be recipients of the Father’s eternal salvation. I know that not all have failed me; some of you have indeed believed my message. In this room now are a full score of men who were once members of the Sanhedrin, or who were high in the councils of the nation, albeit even some of you still shrink from open confession of the truth lest they cast you out of the synagogue. Some of you are tempted to love the glory of men more than the glory of God. But I am constrained to show forbearance since I fear for the safety and loyalty of even some of those who have been so long near me, and who have lived so close by my side.

174:5.4 (1903.1) “In this banquet chamber I perceive there are assembled Jews and gentiles in about equal numbers, and I would address you as the first and last of such a group that I may instruct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before I go to my Father.”

174:5.5 (1903.2) These Greeks had been in faithful attendance upon Jesus’ teaching in the temple. On Monday evening they had held a conference at the home of Nicodemus, which lasted until the dawn of day, and thirty of them had elected to enter the kingdom.

174:5.6 (1903.3) As Jesus stood before them at this time, he perceived the end of one dispensation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Turning his attention

서 말씀하였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의 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해방을 곧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가 임명하는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녀들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도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도한 이 말씀들은 신성한 진리의, 영속하는 자비의,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모두에게 선포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여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땅에서 더욱 풍성한 실존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즐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하인들이 될 것이다.

“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괴로운 심정이다. 나의 민족이 왕국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들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기쁨을 내가 향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인 것 때문에 몹시 산란하다. 내게 일어나려는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때에서 구해 달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너희도 이 말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세례 이전의 시절, 그의 내주하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면서 멈춤에 따라, 이제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 막강한 영이 나

to the Greeks, the Master said:

174:5.7 (1903.4) “He who believes this gospel, believes not merely in me but in Him who sent me. When you look upon me, you see not only the Son of Man but also Him who sent m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nd whosoever will believe my teaching shall no longer abide in darkness. If you gentiles will hear me, you shall receive the words of life and shall enter forthwith into the joyous liberty of the truth of sonship with God. If my fellow countrymen, the Jews, choose to reject me and to refuse my teachings, I will not sit in judgment on them, for I came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offer it salvation. Nevertheless, they who reject me and refuse to receive my teaching shall be brought to judgment in due season by my Father and those whom he has appointed to sit in judgment on such as reject the gift of mercy and the truths of salvation. Remember, all of you, that I speak not of myself, but that I have faithfully declared to you that which the Father commanded I should reveal to the children of men. And these words which the Father directed me to speak to the world are words of divine truth, everlasting mercy, and eternal life.

174:5.8 (1903.5) “But to both Jew and gentile I declare the hour has about come when the Son of Man will be glorified. You well know that, except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n good soil, it springs up again to life and bears much fruit. He who selfishly loves his life stands in danger of losing it; but he who i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shall enjoy a more abundant existence on earth and in heaven, life eternal. If you will truly follow me, even after I have gone to my Father, then shall you become my disciples and the sincere servants of your fellow mortals.

174:5.9 (1903.6) “I know my hour is approaching, and I am troubled. I perceive that my people are determined to spurn the kingdom, but I am rejoiced to receive these truth-seeking gentiles who come here today inquiring for the way of light. Nevertheless, my heart aches for my people, and my soul is distraught by that which lies just before me. What shall I say as I look ahead and discern what is about to befall me?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awful hour? No! For this very purpose have I come into the world and even to this hour. Rather will I say, and pray that you will join me: Father, glorify your name; your will be done.”

174:5.10 (1904.1)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his indwelling during prebaptismal times appeared before him, and as he paused noticeably, this now mighty spirit of the

사렛 예수께 말하였다: “너의 증여 안에서 여러 번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내가 한 번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모여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주(主)가 말씀을 잠시 멈추신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임무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깨우치고 인류를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연합된 수고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고 있고; 이 세상의 영주는 내가 물리쳤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여 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들어 올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내 아버지께 대한 동료관계 안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는 해방자가 이 땅에 언제까지나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다;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둠과 혼동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걸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내가 작별을 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에서의 고별 강연이 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으며, 그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침묵하였고 깊은 묵상을 하였다.

Father's representation spoke to Jesus of Nazareth, saying: "I have glorified my name in your bestowals many times, and I will glorify it once more."

174:5.11 (1904.2) While the Jews and gentiles here assembled heard no voice, they could not fail to discern that the Master had paused in his speaking while a message came to him from some superhuman source. They all said, every man to the one who was by him, "An angel has spoken to him."

174:5.12 (1904.3) Then Jesus continued to speak: "All this has not happened for my sake but for yours. I know of a certainty that the Father will receive me and accept my mission in your behalf, but it is needful that you be encouraged and be made ready for the fiery trial which is just ahead. Let me assure you that victory shall eventually crown our united efforts to enlighten the world and liberate mankind. The old order is bringing itself to judgment; the Prince of this world I have cast down; and all men shall become free by the light of the spirit which I will pour out upon all flesh after I have ascended to my Father in heaven.

174:5.13 (1904.4) "And now I declare to you that I, if I be lifted up on earth and in your lives, will draw all men to myself and into the fellowship of my Father. You have believed that the Deliverer would abide on earth forever, but I declare that the Son of Man will be rejected by men, and that he will go back to the Father. Only a little while will I be with you; only a little time will the living light be among this darkened generation. Walk while you have this light so that the oncoming darkness and confusion may not overtake you. He who walks in the darkness knows not where he goes; but if you will choose to walk in the light, you shall all indeed become liberated sons of God. And now, all of you, come with me while we go back to the temple and I speak farewell words to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the Pharisees, the Sadducees, the Herodians, and the benighted rulers of Israel."

174:5.14 (1904.5) Having thus spoken, Jesus led the way over the narrow streets of Jerusalem back to the temple. They had just heard the Master say that this was to be his farewell discourse in the temple, and they followed him in silence and in deep meditation.

제 175 편 성전에서의 마지막 강연

⇨ 174

유랜시아 책

17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5 편 성전에서의 마지막 강연

섹션

소개

제 1 장. 강연

제 2 장. 개별 유대인의 지위

제 3 장.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제 4 장. 예루살렘의 상황

PAPER 175

THE LAST TEMPLE DISCOU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iscourse

2. Status of Individual Jews

3. The Fateful Sanhedrin Meeting

4. The Situation in Jerusalem

소개

화요일 오후 두 시가 막 지났을 때, 예수는 열한 사도들, 아리마대 요셉, 30명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도착하였으며, 성전 뜰에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 강연은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맹렬한 적들과 아마도 자신을 죽이게 될 사람들—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에 대한 마지막 고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전에는 여러 무리들이 계속하여 예수께 질문을 하였지만; 오후가 된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예수가 말씀을 시작하자, 성전 뜰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였다. 환전상들과 상인들은 전 날 예수와 분개한 군중들에 의해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예수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인간을 향한 자비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적인 작별 말씀과, 고집불통의 유대인 통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이제 곧 듣게 될 청중들을 부드럽게 내려다 보셨다.

INTRODUCTION

175:0.1 (1905.1) SHORTLY after two o'clock on this Tuesday afternoon, Jesus, accompanied by eleven apostles, Joseph of Arimathea, the thirty Greeks, and certain other disciples, arrived at the temple and began the delivery of his last address in the courts of the sacred edifice. This discourse was intended to be his last appeal to the Jewish people and the final indictment of his vehement enemies and would-be destroyers — the scribes, Pharisees, Sadducees, and the chief rulers of Israel. Throughout the forenoon the various groups had had an opportunity to question Jesus; this afternoon no one asked him a question.

175:0.2 (1905.2) As the Master began to speak, the temple court was quiet and orderly. The money-changers and the merchandisers had not dared again to enter the temple since Jesus and the aroused multitude had driven them out the previous day. Before beginning the discourse, Jesus tenderly looked down upon this audience which was so soon to hear his farewell public address of mercy to mankind coupled with his last denunciation of the false teachers and the bigoted rulers of the Jews.

제 1 장. 강연

1. THE DISCOURSE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 자녀들에게 전파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신앙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 이 가르침과 설교들에 관련하여, 아버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하였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였다. 많은 병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으나; 병을 고치고 진리를 선포한 이 모든 것들로도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 왕국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였다.

“나와 사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시종일관 행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들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잘못과 어두움 편에 스스로 줄을 섰다. 빛과 어두움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진리와 실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너희 대부분은 나의 가르침들을 기꺼이 믿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관계를 인식하는 해방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관계를 모든 유대 나라, 심지어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시하였던 나에게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만일 눈이 먼 이들 선생과 위선적인 영도자들이 단지 그에게 돌아서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한다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민족들에게 오랫동안 자비로 대하였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하였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완고한 우두머리 사제들과 고집스런 통치자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해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자비의 손을 뻗치고 계실 것이지만; 너희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잔이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자비를 일단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스스로의 조인으로 버려지겠고, 급속히 치욕스런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아는 종족의 영적 영광을 내비춰 보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 받았으나, 너희는 신성한 특권의 성취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너희 영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땅에 있는 그의 모든 창조체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175:1.1 (1905.3) “This long time have I been with you, going up and down in the land proclaiming the Father’s love for the children of men, and many have seen the light and, by faith, have entered into the kingdom of heaven. In connection with this teaching and preaching the Father has done many wonderful works, even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Many sick and afflicted have been made whole because they believed; but all of this proclamation of truth and healing of disease has not opened the eyes of those who refuse to see light, those who are determined to reject this gospel of the kingdom.

175:1.2 (1905.4)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doing my Father’s will, I and my apostles have done our utmost to live in peace with our brethren, to conform with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laws of Moses and the traditions of Israel. We have persistently sought peace, but the leaders of Israel will not have it. By rejecting the truth of God and the light of heaven, they are aligning themselves on the side of error and darkness. There cannot be peace between light and darkness, between life and death, between truth and error.

175:1.3 (1905.5) “Many of you have dared to believe my teachings and have already entered into the joy and liberty of the consciousness of sonship with God. And you will bear me witness that I have offered this same sonship with God to all the Jewish nation, even to these very men who now seek my destruction. And even now would my Father receive these blinded teachers and these hypocritical leaders if they would only turn to him and accept his mercy. Even now it is not too late for this people to receive the word of heaven and to welcome the Son of Man.

175:1.4 (1906.1) “My Father has long dealt in mercy with this peopl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ve we sent our prophets to teach and warn them, an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ave they killed these heaven-sent teachers. And now do your willful high priests and stubborn rulers go right on doing this same thing. As Herod brought about the death of John, you likewise now make ready to destroy the Son of Man.

175:1.5 (1906.2) “As long as there is a chance that the Jews will turn to my Father and seek salvation,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will keep his hands of mercy outstretched toward you; but when you have once filled up your cup of impenitence, and when once you have finally rejected my Father’s mercy, this nation will be left to its own counsels, and it shall speedily come to an inglorious end. This people was called to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to show forth the spiritual glory of a God-knowing race, but you have so far departed from the fulfillment of your divine privileges that your leaders are about to commit

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을 마침내 거절할 지경에서, 저희가 바야흐로 모든 시대에서의 최극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계시를 일단 거부하고 나면, 하늘의 왕국은 다른 민족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졌던 영원한 진리의 기수(旗手)와 신성한 율법의 보호관리자로서의 너희 위치를 잃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도록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온 가슴을 다하여 하느님을 찾아 하늘의 왕국의 구원과 안전을 성취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보이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오셨으며, 내가 이곳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믿었지만, 첫 번째로 앞에 나아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의 계시—하느님이 사람 속에 나타내시고 사람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를 믿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구원제로의 초청과 함께, 그리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왕국과 연합하라고 독려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음성을 너희가 곧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왕국 복음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메신저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과 그 통치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메신저들이 어떻게 거부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충고하니, 사람의 왕국들을 다스리실 지고자들께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통치자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협조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사람의 아들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너희가 연합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잘 준수하되, 그들의 악한 소행들은 본받지 말라. 이 통치자들의 다음과 같은 죄를 꼭 기억해라: 그들은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자신들이 행치는 않는다. 이 영도자들이 어떻게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그 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너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을 도와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儀式)들로 너희를 압제하며, 전통들에 의해 너희를 노예로 삼는다.

“더욱이, 자아-중심적인 이들 통치자들은 사

the supreme folly of all the ages in that they are on the verge of finally rejecting the gift of God to all men and for all ages — the revelation of the love of the Father in heaven for all his creatures on earth.

175:1.6 (1906.3) “And when you do once reject this revelation of God to man, the kingdom of heaven shall be given to other peoples, to those who will receive it with joy and gladness. In the name of the Father who sent me, I solemnly warn you that you are about to lose your position in the world as the standard-bearers of eternal truth and the custodians of the divine law. I am just now offering you your last chance to come forward and repent, to signify your intention to seek God with all your hearts and to enter, like little children and by sincere faith, into the security and salv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175:1.7 (1906.4) “My Father has long worked for your salvation, and I came down to live among you and personally show you the way. Many of both the Jews and the Samaritans, and even the gentiles, have believed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those who should be first to come forward and accept the light of heaven have steadfastly refused to believe the revelation of the truth of God — God revealed in man and man uplifted to God.

175:1.8 (1906.5) “This afternoon my apostles stand here before you in silence, but you shall soon hear their voices ringing out with the call to salvation and with the urge to unite with the heavenly kingdom as the sons of the living God. And now I call to witness these, my disciples and believer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s well as the unseen messengers by their sides, that I have once more offered Israel and her rulers deliverance and salvation. But you all behold how the Father’s mercy is slighted and how the messengers of truth are rejected. Nevertheless, I admonish you that these scribes and Pharisees still sit in Moses’ seat, and therefore, until the Most Highs who rule in the kingdoms of men shall finally overthrow this nation and destroy the place of these rulers, I bid you co-operate with these elders in Israel. You are not required to unite with them in their plans to destroy the Son of Man, but in everything related to the peace of Israel you are to be subject to them. In all these matters do whatsoever they bid you and observe the essentials of the law but do not pattern after their evil works. Remember, this is the sin of these rulers: They say that which is good, but they do it not. You well know how these leaders bind heavy burdens on your shoulders, burdens grievous to bear, and that they will not lift as much as one finger to help you bear these weighty burdens. They have oppressed you with ceremonies and enslaved you by traditions.

175:1.9 (1907.1) “Furthermore, these self-centered

람에게 그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들은 몸에 지니는 성구함을 넓게 만들고 관복의 옷자락을 더 크게 한다. 그들은 축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며 회당에서는 주빈 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바닥에서 찬미의 인사말을 나누고자 하며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이러한 모든 명예를 받으려 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손아귀에 넣고 성스러운 성전의 예배봉사들로부터 이익을 챙긴다. 이 위선자들은 겉치레로 대중적 기도를 길게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선을 베풀고 있다.

“너희는 통치자들을 명예로 받들고 너희 선생들을 존경해야만하지만, 어떤 사람도 영적 의미에서의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왕국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칭찬 받으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영광을 찾지 말고 하느님의 영광을 찾으라. 너희 자신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이성적으로 굴복시켜라.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 대부분이 은밀하게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나의 때가 오면 너희가 왕국에 대한 너희 자신의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랍비들은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온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변명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가르침을 우연히 배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실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문들을 닫아버리려고 한다.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다.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문들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가 한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성공하게 되면, 그가 이방의 자녀로 있었을 때보다 배나 더 나쁘게 만들고 나서야 너희는 만족한다.

“모세가 제정하였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과중한 의무를 요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너희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너희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자

rulers delight in doing their good works so that they will be seen by men. They make broad their phylacteries and enlarge the borders of their official robes. They crave the chief places at the feasts and demand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They covet laudatory salutations in the market places and desire to be called rabbi by all men. And even while they seek all this honor from men, they secretly lay hold of widows' houses and take profit from the services of the sacred temple. For a pretense these hypocrites make long prayers in public and give alms to attract the notice of their fellows.

175:1.10 (1907.2) “While you should honor your rulers and reverence your teachers, you should call no man Father in the spiritual sense, for there is one who is your Father, even God. Neither should you seek to lord it over your brethren in the kingdom. Remember, I have taught you that he who would be greatest among you should become the server of all. If you presume to exalt yourselves before God, you will certainly be humbled; but whoso truly humbles himself will surely be exalted. Seek in your daily lives, not self-glorification, but the glory of God. Intelligently subordinate your own wills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175:1.11 (1907.3) “Mistake not my words. I bear no malice toward these chief priests and rulers who even now seek my destruction; I have no ill will for these scribes and Pharisees who reject my teachings. I know that many of you believe in secret, and I know you will openly profess your allegiance to the kingdom when my hour comes. But how will your rabbis justify themselves since they profess to talk with God and then presume to reject and destroy him who comes to reveal the Father to the worlds?

175:1.12 (1907.4)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You would shut the doors of the kingdom of heaven against sincere men because they happen to be unlearned in the ways of your teaching. You refuse to enter the kingdom and at the same time do everything within your power to prevent all others from entering. You stand with your backs to the doors of salvation and fight with all who would enter therein.

175:1.13 (1907.5)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that you are! for you do indeed encompass land and sea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you have succeeded, you are not content until you have made him twofold worse than he was as a child of the heathen.

175:1.14 (1907.6) “Woe upon you, chief priests and rulers who lay hold of the property of the poor and demand heavy dues of those who would serve God as they think Moses ordained! You who refuse to show mercy, can you hope for mercy in

비를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 거짓 선생들, 눈이 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둘 모두 멸망의 구렁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거짓으로 서약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성전으로 서약한 사람은 그 서약을 깰 수 있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서약한 자는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니, 너희는 사기꾼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는 부정직함에서조차도 일관성이 없으니,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성전이 더 크냐? 또한 너희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만일 제단으로 서약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에 바친 제물로 서약하면 갚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진리에 눈이 먼 자들이니, 제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확실하게 드러면서 율법의 더 중한 문제들—신앙, 자비, 그리고 심판—은 무시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모든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전자(前者)의 것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後者)의 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눈이 먼 인도자들이고 병어리 선생들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잔과 접시의 겉은 빈틈없이 깨끗하게 닦지만, 그 속에는 강탈과 난폭 그리고 속임수의 오물이 남아있으니,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는 잔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넘쳐흐르는 것이 그 자체로 밖을 저절로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인지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사악한 버림받은 자들아! 너희의 혼은 사악한 불의에 젖어있고 살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너희 해석의 글자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는 너희 종교의 이행 성취를 확인하려 있구나.

“진리를 거부하고 자비를 거절하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대부분은, 밝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느님의 조언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가슴속은 외식과 사악한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민족의 거짓 안내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저 너머에 순교 당한 옛 선지자들의 유적을 세워놓고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했던 바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너희는 정의로운 자들의 무덤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만일 너희가 조상의 때에 살았다더라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뽐내고 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아-정의로움을 생각하는 가운데

the worlds to come?

175:1.15 (1907.7) “Woe upon you, false teachers, blind guides! What can be expected of a nation when the blind lead the blind? They both shall stumble into the pit of destruction.

175:1.16 (1907.8) “Woe upon you who dissimulate when you take an oath! You are tricksters since you teach that a man may swear by the temple and break his oath, but that whoso swears by the gold in the temple must remain bound. You are all fools and blind. You are not even consistent in your dishonesty, for which is the greater, the gold or the temple which has supposedly sanctified the gold? You also teach that, if a man swears by the altar, it is nothing; but that, if one swears by the gift that is upon the altar, then shall he be held as a debtor. Again are you blind to the truth, for which is the greater, the gift or the altar which sanctifies the gift? How can you justify such hypocrisy and dishonesty in the sight of the God of heaven?

175:1.17 (1908.1) “Woe upon you, scribes and Pharisees and all other hypocrites who make sure that they tithe mint, anise, and cummin and at the same time disregard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 faith, mercy, and judgment! Within reason, the one you ought to have done but not to have left the other undone. You are truly blind guides and dumb teachers; you strain out the gnat and swallow the camel.

175:1.18 (1908.2) “Woe upon you, scribes, Pharisees, and hypocrites! for you are scrupulous to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the platter, but within there remains the filth of extortion, excesses, and deception. You are spiritually blind. Do you not recognize how much better it would be first to cleanse the inside of the cup, and then that which spills over would of itself cleanse the outside? You wicked reprobates! you make the outward performances of your religion to conform with the letter of your interpretation of Moses' law while your souls are steeped in iniquity and filled with murder.

175:1.19 (1908.3) “Woe upon all of you who reject truth and spurn mercy! Many of you are like whited sepulchres, which outwardly appear beautiful but within are full of dead men's bones and all sorts of uncleanness. Even so do you who knowingly reject the counsel of God appear outwardly to men as holy and righteous, but inwardly your hearts are filled with hypocrisy and iniquity.

175:1.20 (1908.4) “Woe upon you, false guides of a nation! Over yonder have you built a monument to the martyred prophets of old, while you plot to destroy Him of whom they spoke. You garnish the tombs of the righteous and flatter yourselves that, had you lived in the days of your fathers, you would not have killed the prophets; and then in the face of such self-righteous thinking you make ready to

데에서 너희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 사람, 사람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준비를 갖추었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악한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중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리고 너희 죄를 드러내는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라!

“악의 자손들인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요한이 진실로 너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요한이 너희에게 선포한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자 한다; 나는 아직도 영원한 친교를 위한 사랑 넘치는 손을 내밀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현명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였다. 그 때 요한이 나타나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였지만,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된 후에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욱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하늘에서 온 이 메신저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모든 세상에 대한 재판관이 이 민족에게 요구할, 무시무시한 응징의 날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처음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부터,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스가랴 시절까지, 이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을 계속 가면, 이 책임은 아마도 바로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오!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너희에게 보낸 선생들을 죽인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으듯 내가 너희 자녀들을 지금도 모으고자 하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작별을 고한다. 너희는 나의 메시지를 들었고 너희 결심을 정하였다. 나의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은 지금도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안전하다. 하느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나를 너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일은 끝났다. 보라,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과 함께 가지만,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아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主)는 성전을 떠나자고 따르는 자들을 손짓하여 부르셨다.

slay him of whom the prophets spoke, the Son of Man. Inasmuch as you do these things, are you witness to yourselves that you are the wicked sons of them who slew the prophets. Go on, then, and fill up the cup of your condemnation to the full!

175:1.21 (1908.5) “Woe upon you, children of evil! John did truly call you the offspring of vipers, and I ask how can you escape the judgment that John pronounced upon you?

175:1.22 (1908.6) “But even now I offer you in my Father’s name mercy and forgiveness; even now I proffer the loving hand of eternal fellowship. My Father has sent you the wise men and the prophets; some you have persecuted and others you have killed. Then appeared John proclaiming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and him you destroyed after many had believed his teaching. And now you make ready to shed more innocent blood. Do you not comprehend that a terrible day of reckoning will come when the Judge of all the earth shall require of this people an accounting for the way they have rejected, persecuted, and destroyed these messengers of heaven? Do you not understand that you must account for all of this righteous blood, from the first prophet killed down to the times of Zechariah, who was slain between the sanctuary and the altar? And if you go on in your evil ways, this accounting may be required of this very generation.

175:1.23 (1908.7) “O Jerusalem and the children of Abraham, you who have stoned the prophets and killed the teachers that were sent to you, even now would I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ens under her wings, but you will not!

175:1.24 (1908.8) “And now I take leave of you. You have heard my message and have made your decision. Those who have believed my gospel are even now safe within the kingdom of God. To you who have chosen to reject the gift of God, I say that you will no more see me teaching in the temple. My work for you is done. Behold, I now go forth with my children, and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175:1.25 (1908.9) And then the Master beckoned his followers to depart from the temple.

제 2 장. 개별 유대인의 지위

유대 나라의 영적 영도자들과 종교적 교사들이 예수의 가르침들을 한 때 거절하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기로 모의한 그 사실이 하느님 앞에 서는 유대인들 각자의 신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유대인과 동료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2. STATUS OF INDIVIDUAL JEWS

175:2.1 (1909.1) The fact that the spiritual leaders and the religious teachers of the Jewish nation onetime rejected the teachings of Jesus and conspired to bring about his cruel death, does not in any manner affect the status of any individual Jew in his standing before God. And it should not cause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한 나라로서, 하나의 사회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유대인들은 평화의 영주를 거절한데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였다. 그들은 인류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적 선구자가 되기를 오래 전에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출생으로 스스로 유대인이 되신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편협하고 비열하며 고집불통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박해의 고통을, 그들의 후손들 각자가 고통당해야 하는 까닭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非)그리스도적인 이런 증오와 박해는, 예수의 시대에 진심으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침내는 그들이 그토록 전심으로 믿었던 그 진리를 위해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선조를 가진, 어떤 순결하고 죄가 없는 유대인 개별존재의 고난과 죽음으로 여러 차례 끝나게 하였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했던 자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포기한 베드로, 빌립, 마태 그리고 다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훗날 후손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데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몹서리치는 참극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선조들의 죄 때문에, 순결한 자녀들이,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악행들로, 수난을 당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분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악한 행위들이 벌어지다니! 예수의 일생을 이렇게 다시 진술하면서, 그의 동료인 유대인들의 일성인들이 그를 거부하고 또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주려 음모를 꾸민 그 자세를 묘사하는 일이 부득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진술이, 그렇게 많은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이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 개별존재들을 향하여 유지해왔던, 옳지 않은 증오를 어떤 방법에서든지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부당한 마음의 태도를 묵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국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 개별존재를 대할 때,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한다.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은 유대인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며,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제 3 장.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화요일 저녁 8시에, 산헤드린의 숙명적인 회의가 소집되었다. 유대 나라의 이 대법정은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할 것을 비공

those who profess to be followers of the Christ to be prejudiced against the Jew as a fellow mortal. The Jews, as a nation, as a sociopolitical group, paid in full the terrible price of rejecting the Prince of Peace. Long since they ceased to be the spiritual torchbearers of divine truth to the races of mankind, but this constitutes no valid reason why the individual descendants of these long-ago Jews should be made to suffer the persecutions which have been visited upon them by intolerant, unworthy, and bigoted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of Nazareth, who was, himself, a Jew by natural birth.

175:2.2 (1909.2) Many times has this unreasoning and un-Christlike hatred and persecution of modern Jews terminated in the suffering and death of some innocent and unoffending Jewish individual whose very ancestors, in the times of Jesus, heartily accepted his gospel and presently died unflinchingly for that truth which they so wholeheartedly believed. What a shudder of horror passes over the onlooking celestial beings as they behold the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indulge themselves in persecuting, harassing, and even murdering the later-day descendants of Peter, Philip, Matthew, and others of the Palestinian Jews who so gloriously yielded up their lives as the first martyrs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175:2.3 (1909.3) How cruel and unreasoning to compel innocent children to suffer for the sins of their progenitors, misdeeds of which they are wholly ignorant, and for which they could in no way be responsible! And to do such wicked deeds in the name of one who taught his disciples to love even their enemies! It has become necessary, in this recital of the life of Jesus, to portray the manner in which certain of his fellow Jews rejected him and conspired to bring about his ignominious death; but we would warn all who read this narrative that the presentation of such a historical recital in no way justifies the unjust hatred, nor condones the unfair attitude of mind, which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have maintained toward individual Jews for many centuries. Kingdom believers, those who follow the teachings of Jesus, must cease to mistreat the individual Jew as one who is guilty of the rejection and crucifixion of Jesus. The Father and his Creator Son have never ceased to love the Jew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and salvation is for the Jew as well as for the gentile.

3. THE FATEFUL SANHEDRIN MEETING

175:3.1 (1909.4) At eight o'clock on this Tuesday evening the fateful meeting of the Sanhedrin was called to order. On many previous occasions had

식적으로 선언하였었다. 위엄 있는 이 통치기관은 그의 일을 멈추게 하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체포하여 죽이기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당시에 선출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와 나사로 둘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투표한 것은 서기 30년 4월 4일 화요일 자정이 막 되어 가는 무렵이었다. 이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성전에서 하였던 유대인 통치자들을 향한 주(主)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두머리 사제들 그리고 완고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의 마지막이고도 힘찬 고발에 대하여 그들의 지독한 분개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내려진(재판하기도 전에) 사형선고는 유대 나라에도 언제나 그러한 입장에서 피져갈 수 있었던 하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산헤드린의 반응이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란시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순전히 그들의 인간 지위에 따라서만, 그들의 텃밭고 또 짧은 기간의 민족적 일생을 완결하도록 남겨졌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하느님의 아들을 거부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하여 진리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거부하였다. 신성한 계약은 폐기되었고, 히브리 나라의 종말이 신속히 임하게 되었다.

산헤드린의 관리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지만, 대중들 앞에서 체포하지는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밤에 갑자기 그를 체포할 계획을 보고 받았다. 그들은 예수가 그 날(수요일)에는 가르치려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목요일 자정 전까지 유대 대법정 앞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제 4 장. 예루살렘의 상황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연의 결론 부분에, 사도들은 다시 한 번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 주(主)가 유대 통치자들에 대해 끔찍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도 성전으로 돌아왔으며, 그리하여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설교의 후반부를 열 두 사도들 모두가 듣게 되었다. 작별을 고하는 이 강연에서 첫 부분과 자비를 제시하는 절반 부분을 가룟 유다가 듣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유대인 통치자들에게 제시한 이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어떤 사두개인 친척들 무리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직도 의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복음 운동을 저버리고 모든 계획에서 손을 씻기로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결심한 것은, 유대 영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주(主)의 최종적인 고발을

this supreme court of the Jewish nation informally decreed the death of Jesus. Many times had this august ruling body determined to put a stop to his work, but never before had they resolved to place him under arrest and to bring about his death at any and all costs. It was just before midnight on this Tuesday, April 4, A.D. 30, that the Sanhedrin, as then constituted, officially and *unanimously* voted to impose the death sentence upon both Jesus and Lazarus. This was the answer to the Master's last appeal to the rulers of the Jews which he had made in the temple only a few hours before, and it represented their reaction of bitter resentment toward Jesus' last and vigorous indictment of these same chief priests and impenitent Sadducees and Pharisees. The passing of death sentence (even before his trial) upon the Son of God was the Sanhedrin's reply to the last offer of heavenly mercy ever to be extended to the Jewish nation, as such.

175:3.2 (1910.1) From this time on the Jews were left to finish their brief and short lease of national life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ir purely human status among the nations of Urantia. Israel had repudiated the Son of the God who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nd the plan to make the children of Abraham the light-bearers of truth to the world had been shattered. The divine covenant had been abrogated, and the end of the Hebrew nation drew on apace.

175:3.3 (1910.2) The officers of the Sanhedrin were given the orders for Jesus' arrest early the next morning, but with instructions that he must not be apprehended in public. They were told to plan to take him in secret, preferably suddenly and at night. Understanding that he might not return that day (Wednesday) to teach in the temple, they instructed these officers of the Sanhedrin to “bring him before the high Jewish court sometime before midnight on Thursday.”

4. THE SITUATION IN JERUSALEM

175:4.1 (1910.3) At the conclusion of Jesus' last discourse in the temple, the apostles once more were left in confusion and consternation. Before the Master began his terrible denunciation of the Jewish rulers, Judas had returned to the temple, so that all twelve heard this latter half of Jesus' last discourse in the temple. It is unfortunate that Judas Iscariot could not have heard the first and mercy-proffering half of this farewell address. He did not hear this last offer of mercy to the Jewish rulers because he was still in conference with a certain group of Sadducean relatives and friends with whom he had lunched, and with whom he was conferring as to the most fitting manner of dissociating himself from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It was while listening to the Master's final

듣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 두 명의 일행에 끼어 성전을 떠나 올리브 산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유대 나라의 종말에 관한 숙명적 강연을 들었으며, 그 화요일 밤에는 겟세마네 근처에 있는 새로운 야영지에서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유대 영도자들에게 자비로운 호소를 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차 없이 심하게 경고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날 밤, 산헤드린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主)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중 몇몇과 함께 올리브 산에 앉아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동안에, 온 예루살렘은 오직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심각하면서도 은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니고데모의 집에는 비밀리에 왕국을 믿는 30명 이상의 저명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헤드린과의 공개적인 단절이 이를 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주(主)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했던 그대로 행하였다.

이제는 산헤드린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 사두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몹시 죽이고 싶어 하였다:

1. 그에 대한 군중들의 관심이 점점 더 일반적인 호의로 자라감으로써 로마 당국자들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 유대 나라가 실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우려하였다.

2. 성전 개혁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성전 청결은 그들의 돈지갑에 영향을 끼쳤다.

3. 그들은 사회 계층 유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형제신분을 이룬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예수의 교리가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동기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1. 그가 말하는 것이 그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지배권에 여러모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보수파였으므로, 그들의 종교적 교사들로서의 기득권에 대해 과격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몹시 분개하였다.

2.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판단

indictment of the Jewish leaders and rulers that Judas finally and fully made up his mind to forsake the gospel movement and wash his hands of the whole enterprise. Nevertheless, he left the temple in company with the twelve, went with them to Mount Olivet, where, with his fellow apostles, he listened to that fateful discourse o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end of the Jewish nation, and remained with them that Tuesday night at the new camp near Gethsemane.

175:4.2 (1910.4) The multitude who heard Jesus swing from his merciful appeal to the Jewish leaders into that sudden and scathing rebuke which bordered on ruthless denunciation, were stunned and bewildered. That night, while the Sanhedrin sat in death judgment upon Jesus, and while the Master sat with his apostles and certain of his disciples out on the Mount of Olives foretelling the death of the Jewish nation, all Jerusalem was given over to the serious and suppressed discussion of just one question: “What will they do with Jesus?”

175:4.3 (1910.5) At the home of Nicodemus more than thirty prominent Jews who were secret believers in the kingdom met and debated what course they would pursue in case an open break with the Sanhedrin should come. All present agreed that they would make open acknowledgment of their allegiance to the Master in the very hour they should hear of his arrest. And that is just what they did.

175:4.4 (1911.1) The Sadducees, who now controlled and dominated the Sanhedrin, were desirous of making away with Jesus for the following reasons:

175:4.5 (1911.2) 1. They feared that the increased popular favor with which the multitude regarded him threatened to endanger the existence of the Jewish nation by possible involvement with the Roman authorities.

175:4.6 (1911.3) 2. His zeal for temple reform struck directly at their revenues; the cleansing of the temple affected their pocketbooks.

175:4.7 (1911.4) 3. They felt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and they feared the consequences of the further spread of Jesus' strange and new doctrine of the brotherhood of man.

175:4.8 (1911.5) The Pharisees had different motives for wanting to see Jesus put to death. They feared him because:

175:4.9 (1911.6) 1. He was arrayed in telling opposition to their traditional hold upon the people. The Pharisees were ultraconservative, and they bitterly resented these supposedly radical attacks upon their vested prestige as religious teachers.

175:4.10 (1911.7) 2. They held that Jesus was a

하였다; 그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과 예식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3. 그들은 그가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죄를 선고했다.

4. 그리고 이제는 그의 마지막 강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이 날 그가 성전에서 제시하였던 신랄한 비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에게 철저히 분노를 품게 되었다.

산헤드린은, 예수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후에, 예수가 재판관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소를 공식화(公式化)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일 것을 약속한 후 이 화요일 자정 무렵에 해산하였다.

약간의 사두개인 무리들이 예수를 암살하여 처치하자고 실제로 제안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방법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것이 파란 많은 이 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상태였으며, 거대한 무리의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의 중대한 사건 주변에서 모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주권자를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상급자들이 효과적으로 제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lawbreaker; that he had shown utter disregard for the Sabbath and numerous other legal and ceremonial requirements.

175:4.11 (1911.8) 3. They charged him with blasphemy because he alluded to God as his Father.

175:4.12 (1911.9) 4. And now were they thoroughly angry with him because of his last discourse of bitter denunciation which he had this day delivered in the temple as the concluding portion of his farewell address.

175:4.13 (1911.10) The Sanhedrin, having formally decreed the death of Jesus and having issued orders for his arrest, adjourned on this Tuesday near midnight, after appointing to meet at ten o'clock the next morning at the hom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 the charges on which Jesus should be brought to trial.

175:4.14 (1911.11) A small group of the Sadducees had actually proposed to dispose of Jesus by assassination, but the Pharisees utterly refused to countenance such a procedure.

175:4.15 (1911.12) And this was the situation in Jerusalem and among men on this eventful day while a vast concourse of celestial beings hovered over this momentous scene on earth, anxious to do something to assist their beloved Sovereign but powerless to act because they were effectively restrained by their commanding superiors.

제 176 편 화요일 저녁 올리브 산에서

⇨ 175

유랜시아 책

17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6 편 화요일 저녁 올리브 산에서

섹션

소개

제 1 장. 예루살렘의 멸망

제 2 장. 주(主)의 재림

제 3 장. 야영지에서의 토론

제 4 장. 미가엘의 재림

PAPER 176

TUESDAY EVENING ON MOUNT OLIVET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2. The Master's Second Coming

3. Later Discussion at the Camp

4. The Return of Michael

소개

화요일 오후, 예수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나가 겟세마네 야영지로 가는 도중에, 마태는 성전 건축물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했다; “주(主)여,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 거대한 돌들과 아름다운 장식을 보니; 이런 건물들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올리브 산을 향하여 나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이 돌들과 거대한 성전을 보겠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저들이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신성한 성전의 파괴를 뜻하는 이러한 말씀은 주(主)의 뒤를 따라 걸어오고 있는 사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기드온 계곡을 따라 겟세마네로 가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와 사도들은 올리브 산 서쪽 능선을 오르는 짧은 거리를 오른 다음, 대중 야영장 위로 조금 떨어진 겟세마네 근처에 설치된 그들의 사설 야영지를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갈 생각이었다. 그들은 베다니로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돌아서면서, 석양의 빛으로 영광스러워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도시에서 비치는 빛들을 보았고, 불빛이 비추어진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보

INTRODUCTION

176:0.1 (1912.1) THIS Tuesday afternoon, as Jesus and the apostles passed out of the temple on their way to the Gethsemane camp, Matthew, calling attention to the temple construction, said: “Master, observe what manner of buildings these are. See the massive stones and the beautiful adornment; can it be that these buildings are to be destroyed?” As they went on toward Olivet, Jesus said: “You see these stones and this massive temple; verily, verily, I say to you: In the days soon to come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They shall all be thrown down.” These remarks depicting the destruction of the sacred temple aroused the curiosity of the apostles as they walked along behind the Master; they could conceive of no event short of the end of the world which would occasion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176:0.2 (1912.2) In order to avoid the crowds passing along the Kidron valley toward Gethsemane, Jesus and his associates were minded to climb up the western slope of Olivet for a short distance and then follow a trail over to their private camp near Gethsemane located a short distance above the public camping ground. As they turned to leave the road leading on to Bethany, they observed the temple, glorified by the rays of the setting sun; and while they tarried on the mount, they saw the lights

름달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앉아 있었다.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윽고 나다니엘이 질문하였다: “주(主)여,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1 장. 예루살렘의 멸망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말했다; “이 민족이 그들의 사악한 불의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도시에 공의가 속히 임하는 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 하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려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해방자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근과 지진들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 너희가 시민 재판관들에게 넘겨지거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고 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겠으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총독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것은 너희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한 것이며 왕국 복음에 대해 너희가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에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고난의 시절에는, 너희 친족들조차도 사람의 아들들을 거절하였던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너희를 감옥에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 동안 미움을 받겠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는 잠시 멈추시고 도시를 내려다보셨다. 메시아의 영적 개념에 대한 거부, 기대하던 해방자의 물질적인 역할에 맹목적으로 계속 매여 달리려는 경향이 이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강력한 로마 집단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그러한 싸움은 마침내 유대 나라의 완벽한 멸망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주(主)는 깨달았다. 그의 민족이 그의 영적 증여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비롭게 그들에게 내려 쏘는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의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가진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마감하였다. 심지어 유대 영도자들도, 동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세속적 관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of the city appear and beheld the beauty of the illuminated temple; and there, under the mellow light of the full moon, Jesus and the twelve sat down. The Master talked with them, and presently Nathaniel asked this question: “Tell us, Master, how shall we know when these events are about to come to pass?”

1.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176:1.1 (1912.3) In answering Nathaniel's question, Jesus said: “Yes, I will tell you about the times when this people shall have filled up the cup of their iniquity; when justice shall swiftly descend upon this city of our fathers. I am about to leave you; I go to the Father. After I leave you,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for many will come as deliverers and will lead many astray.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e not troubled, for though all these things will happen, the end of Jerusalem is not yet at hand. You should not be perturbed by famines or earthquakes; neither should you be concerned when you are delivered up to the civil authorities and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the gospel. You will be thrown out of the synagogue and put in prison for my sake, and some of you will be killed. When you are brought up before governors and rulers, it shall be for a testimony of your faith and to show your steadfastness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hen you stand before judges, be not anxious beforehand as to what you should say, for the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should answer your adversaries. In these days of travail, even your own kinsfolk, under the leadership of those who have rejected the Son of Man, will deliver you up to prison and death. For a time you may be hated by all men for my sake, but even in these persecutions I will not forsake you; my spirit will not desert you. Be patient! doubt not that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triumph over all enemies and, eventually, be proclaimed to all nations.”

176:1.2 (1913.1) Jesus paused while he looked down upon the city. The Master realized that the rejection of the spiritual concept of the Messiah, the determination to cling persistently and blindly to the material mission of the expected deliverer, would presently bring the Jew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powerful Roman armies, and that such a contest could only result in the final and complete overthrow of the Jewish nation. When his people rejected his spiritual bestowal and refused to receive the light of heaven as it so mercifully shone upon them, they thereby sealed their doom as an independent people with a special spiritual mission on earth. Even the Jewish leaders subsequently recognized that it was this secular idea of the Messiah which directly led to the turbulence which eventually brought about their

예루살렘이 초기 복음 운동의 요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선생들과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유대 민족의 무시무시한 멸망 속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지시들을 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곧 다가올 반역에 가담하여 예루살렘의 파멸 속에서 죽게 되지 않기를 무척 바라셨다.

그 때 안드레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主)여, 만약에 거룩한 도시가 성전이 멸망될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떠난 후에, 힘들고 쓰라린 박해의 때까지도 너희는 그 도시에 머물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반란이 있을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멸망이 임박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야만 한다. 아무도 성(城)안에 있게 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구하려고 그 주변에 머무르게 하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들도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이방인이 복수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도시를 떠난 후에, 순종하지 않는 이 민족은 무력에 의해 함락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그러는 동안에 너희는 속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보라, 그 해방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에 있다.’고 말하여도 그것을 믿지 마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으니, 너희는 속지 않을 것이다.”

몹시 놀라게 하는 주(主)의 예언의 말씀이 어리둥절한 사도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동안,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한참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로마 군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신자들 그리고 제자들 전체의 무리가 북쪽에 있는 펠라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바로 이러한 경고(警告)에 따라서였다,

이러한 명백한 경고가 있는 후에도, 예수를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이 메시아가 다시 나타날 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의미하며, 확대된 도시가 세계의 수도가 되는 명백한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채울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의 종말이 있을 후에 즉시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主)여,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리라는 것은 저희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destruction.

176:1.3 (1913.2) Since Jerusalem was to become the cradle of the early gospel movement, Jesus did not want its teachers and preachers to perish in the terrible overthrow of the Jewish people in connection with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herefore did he give these instructions to his followers. Jesus was much concerned lest some of his disciples become involved in these soon-coming revolts and so perish in the downfall of Jerusalem.

176:1.4 (1913.3) Then Andrew inquired: “But, Master, if the Holy City and the temple are to be destroyed, and if you are not here to direct us, when should we forsake Jerusalem?” Said Jesus: “You may remain in the city after I have gone, even through these times of travail and bitter persecution, but when you finally see Jerusalem being encompassed by the Roman armies after the revolt of the false prophets, then will you know that her desolation is at hand; then must you flee to the mountains. Let none who are in the city and around about tarry to save aught, neither let those who are outside dare to enter therei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for these will be the days of gentile vengeance. And after you have deserted the city, this disobedient people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will be led captive into all nations; and so shall Jerusalem be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In the meantime, I warn you, be not deceived. If any man comes to you, saying, ‘Behold, here is the Deliverer,’ or ‘Behold, there is he,’ believe it not, for many false teachers will arise and many will be led astray; but you should not be deceived, for I have told you all this beforehand.”

176:1.5 (1913.4) The apostles sat in silence in the moonlight for a considerable time while these astounding predictions of the Master sank into their bewildered minds. And it was in conformity with this very warning that practically the entire group of believers and disciples fled from Jerusalem upon the first appearance of the Roman troops, finding a safe shelter in Pella to the north.

176:1.6 (1913.5) Even after this explicit warning, many of Jesus’ followers interpreted these predictions as referring to the changes which would obviously occur in Jerusalem when the reappearing of the Messiah would resul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Jerusalem and in the enlargement of the city to become the world’s capital. In their minds these Jews were determined to connect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with the “end of the world.” They believed this New Jerusalem would fill all Palestine; that the end of the world would be followed by the immediate appearance of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nd so it was not

언제 오실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너희가 늘 실수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옛날 것에 붙이려고 애쓰는 까닭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을 오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너희 자신의 이미 확립된 믿음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2 장. 주(主)의 재림

예수는 이 세상을 곧 떠날 계획을 가지시면서, 하늘왕국의 일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청중들이 추측하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였다. 제자들에게 그가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신념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난 그 이후에는, 이들 돌아오겠다는 약속에 모든 신자들이 즉시 매달리게 된 것은 오직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부터 대부분 세대들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독실하게 믿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主)요 선생님이신 그와 일치했었다면, 그 첫 번째 제자들과 사도들은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훨씬 더 이해하였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예고된 멸망과 재림의 약속을 연관시키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리브 산에서 이 날 저녁 내내, 주(主)가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그렇게 해석하였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답변하면서 예수가 말했다;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의 현세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내려다보는 것들은 종말에 다가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니 그때부터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구원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왕국이 충만한 결실로 다가올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에 어둠의 영주가 된 자를 증여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를 뒤따라 멜기세덱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진리에 대한 확대된 계시와 증진된 정의(正義)의 실현과 함께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임에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도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현시하

strange that Peter should say: “Master, we know that all things will pass away whe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ppear, but how shall we know when you will return to bring all this about?”

176:1.7 (1914.1)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thoughtful for some time and then said: “You ever err since you always try to attach the new teaching to the old; you are determined to misunderstand all my teaching; you insist on interpreting the gospel in accordance with your established beliefs. Nevertheless, I will try to enlighten you.”

2. THE MASTER'S SECOND COMING

176:2.1 (1914.2) On several occasions Jesus had made statements which led his hearers to infer that, while he intended presently to leave this world, he would most certainly return to consummate the work of the heavenly kingdom. As the conviction grew on his followers that he was going to leave them, and after he had departed from this world, it was only natural for all believers to lay fast hold upon these promises to return. The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us became early incorporated into the teachings of the Christians, and almost every subsequent generation of disciples has devoutly believed this truth and has confidently looked forward to his sometime coming.

176:2.2 (1914.3) If they were to part with their Master and Teacher, how much more did these first disciples and the apostles grasp at this promise to return, and they lost no time in associating the predicted destruction of Jerusalem with this promised second coming. And they continued thus to interpret his words notwithstanding that, throughout this evening of instruction on Mount Olivet, the Master took particular pains to prevent just such a mistake.

176:2.3 (1914.4) In further answer to Peter's question, Jesus said: “Why do you still look for the Son of Man to sit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expect that the material dreams of the Jews will be fulfilled? Have I not told you all these years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The things which you now look down upon are coming to an end, but this will be a new beginning out of which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go to all the world and this salvation will spread to all peoples. And when the kingdom shall have come to its full fruition, be assured that the Father in heaven will not fail to visit you with an enlarged revelation of truth and an enhanced demonstration of righteousness, even as he has already bestowed upon this world him who became the prince of darkness, and then Adam, who was followed by Melchizedek, and in these days, the Son of Man. And so will my Father

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권한을 내게 부어주실 때까지는, 곧 바로 모든 육신에게 쏟아지게 될 나의 영의 현존으로서 계속하여 너희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리고 왕국의 관련자들을 안내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영으로 너희와 현존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또한 내가 육신으로 이 생명을 살았고 하느님을 사람에게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을 하느님게로 인도하였던 이 세상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한다. 이제 곧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한 일을 떠맡아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니 용기를 내라. 그 동안에 한 우주에서의 나의 진리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그리고 나약함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힘과 영으로 있을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으로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지만, 아버지께 의해 영화롭게 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날 사람의 아들은 오직 영의 눈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때는 파라다이스 회의에서만 알려졌을 뿐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납득해야만 할 것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시대에서의 충만함이 끝을 지나치려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시대적 증여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이 시대를 판결하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관하여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려고 추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시기에서의 무르익음에 대하여는 지혜로와만 한다; 시절의 징조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물질적인-마음작용의 긴 겨울을 거쳐서 끝을 지나왔고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섭리시대의 영적 봄철이 오고 있음을 식별할 때에는, 너희는 새로운 방문(訪問)의 여름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마땅히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오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의 의의(意義)가 무엇이겠느냐? 너희들 각자가 생(生)의 투쟁을 내려놓고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지나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는 즉시 심판의 현존앞에 있게 되고, 그것이 무한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사실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는 못하겠느냐? 한 시기의 끝에서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의 사실로 마주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개별존재로서, 너희 자연적 생명의 끝에

continue to manifest his mercy and show forth his love, even to this dark and evil world. So also will I, after my Father has invested me with all power and authority, continue to follow your fortunes and to guide in the affairs of the kingdom by the presence of my spirit, who shall shortly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Even though I shall thus be present with you in spirit, I also promise that I will sometime return to this world, where I have lived this life in the flesh and achieved the experience of simultaneously revealing God to man and leading man to God. Very soon must I leave you and take up the work the Father has intrusted to my hands, but be of good courage, for I will sometime return. In the meantime, my Spirit of the Truth of a universe shall comfort and guide you.

176:2.4 (1915.1) “You behold me now in weakness and in the flesh, but when I return, it shall be with power and in the spirit. The eye of flesh beholds the Son of Man in the flesh, but only the eye of the spirit will behold the Son of Man glorified by the Father and appearing on earth in his own name.

176:2.5 (1915.2) “But the times of the reappearing of the Son of Man are known only in the councils of Paradise;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know when this will occur. However, you should understand that, when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have been proclaimed to all the world for the salvation of all peoples, and when the fullness of the age has come to pass, the Father will send you another dispensational bestowal, or else the Son of Man will return to adjudge the age.

176:2.6 (1915.3) “And now concerning the travail of Jerusalem, about which I have spoken to you, even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my words are fulfilled; but concerning the times of the coming again of the Son of Man, no one in heaven or on earth may presume to speak. But you should be wise regarding the ripening of an age; you should be alert to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You know when the fig tree shows its tender branches and puts forth its leaves that summer is near. Likewise, when the world has passed through the long winter of material-mindedness and you discern the coming of the spiritual springtime of a new dispensation, should you know that the summertime of a new visitation draws near.

176:2.7 (1915.4) “But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teaching having to do with the coming of the Sons of God? Do you not perceive that, when each of you is called to lay down his life struggle and pass through the portal of death, you stand in the immediate presence of judgment, and that you are face to face with the facts of a new dispensation of service in the eternal plan of the infinite Father? What the whole world must face as a literal fact at the end of an age, you, as individuals, must each

너희가 이르렀을 때, 각각은 가장 확실하게 개인적 체험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로서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진보의 다음번 계시에서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조건과 요구와 부닥쳐보면서 통과하는 것이다.

주(主)가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모든 강연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자신의 재림에 대한, 올리브 산에서 이 화요일 저녁에 주신 이 이중적인 주제에 관한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그토록 혼동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기회를 맞아 주(主)가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이후에 기록된 여러 설명들 사이에는 거의 일치하는 점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화요일 저녁에 말쑥한 것들 대부분의 기록들이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자, 많은 전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칼리굴라 황제의 법정에 소속되었던 셀타라는 사람이 2세기 아주 초기에 쓴 메시아에 관한 유대 종말론 사상이 마태복음에 통채로 복사되었으며, 후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에 (부분적으로) 첨가 되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출현한 것도 셀타의 이 기록들에서였다. 이 날 저녁의 가르침만큼 복음서 기록에서 혼동되어 오해를 일으킨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혼동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었다.

이들 열 세 명의 사람들은 야영지로 돌아가면서 말이 없었고 감정적인 긴장감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유다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버리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 그리고 여러 명의 수제자들이 예수와 열 두 명을 새 야영지로 맞이한 때는 무척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은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主)의 떠나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하였다.

제 3 장. 야영지에서의 토론

약 20여 명이 되는 그들이 모닥불 앞에 모였을 때, 도마가 질문하였다. “주(主)께서 왕국의 일을 완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후로, 당신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는 모닥불에 비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마야, 너마저도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왕국이 영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것을 신앙-실현에 의해 영 안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네게 내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느냐? 나라들의 멸망, 제국들의 파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패망, 한 시대의 종말,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확신 속

most certainly face as a personal experience when you reach the end of your natural life and thereby pass on to be confronted with the conditions and demands inherent in the next revelation of the eternal progression of the Father's kingdom.”

176:2.8 (1915.5) Of all the discourses which the Master gave his apostles, none ever became so confused in their minds as this one, given this Tuesday evening on the Mount of Olives, regarding the twofold subject of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his own second coming. There was, therefore, little agreement between the subsequent written accounts based on the memories of what the Master said on this extraordinary occasion. Consequently, when the records were left blank concerning much that was said that Tuesday evening, there grew up many traditions; and very early in the second century a Jewish apocalyptic about the Messiah written by one Selta, who was attached to the court of the Emperor Caligula, was bodily copied into the Matthew Gospel and subsequently added (in part) to the Mark and Luke records. It was in these writings of Selta that the parable of the ten virgins appeared. No part of the gospel record ever suffered such confusing misconstruction as this evening's teaching. But the Apostle John never became thus confused.

176:2.9 (1915.6) As these thirteen men resumed their journey toward the camp, they were speechless and under great emotional tension. Judas had finally confirmed his decision to abandon his associates. It was a late hour when David Zebedee, John Mark, and a number of the leading disciples welcomed Jesus and the twelve to the new camp, but the apostles did not want to sleep; they wanted to know more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 Master's departure, and the end of the world.

3. LATER DISCUSSION AT THE CAMP

176:3.1 (1916.1) As they gathered about the campfire, some twenty of them, Thomas asked: “Since you are to return to finish the work of the kingdom, what should be our attitude while you are away on the Father's business?” As Jesus looked them over by the firelight, he answered:

176:3.2 (1916.2) “And even you, Thomas, fail to comprehend what I have been saying. Have I not all this time taught you that your connection with the kingdom is spiritual and individual, wholly a matter of personal experience in the spirit by the faith-realization that you are a son of God? What more shall I say? The downfall of nations, the crash of empires, the destruction of the unbelieving Jews, the end of an age, even the end

에 생명을 맡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느님을 아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이미 받아들었다. 영 속에서 살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 살게 된 너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왕국 건축자들, 하늘 세계들의 공인된 시민들은 일시적인 변혁 때문에 동요되거나 지구의 격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명이 아들의 선물이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나라들이 전복되든지 시대가 끝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파괴되든지, 이 왕국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앙으로 현세의 일생을 살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정의로써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첫 번째 모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험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관계로 너희를 인도한 동일한 생존하는 신앙과 함께,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너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대할 수 있다.

“각 개별 믿는 자가 피할 수 없고 언제든지-들이 닥칠 수 있는 자연적 죽음을 참작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생의 일을 수행하며 나아가듯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믿는 자들의 각각의 세대는 사람의 아들의 가능할 수 있는 귀환을 참작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을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 너희가 일단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써 세우고 나면, 생존의 확실성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생존적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인간 가슴 속에 맨처음 영감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신성한 영의 열매들을 점점 많이 현시한다. 하늘왕국 안에서 아들관계임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육신을 입은 하느님 아들이 진보하는 영적 열매의-수확을 행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끈질기게 거절하는 모습에서는 너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해 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인류를 위한 아버지의 봉사에서의 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한다면, 너희는 지금 당장 왕국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다.

“각 개별존재로써,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한 세대로써, 내가 말하는 비유를 들어라: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뢰하는 자기 하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또한 영예를 얻은 모든 청지기들 각자의 힘에 따라 알맞게 자신의 재물을 위탁하였다; 그 후에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주님이 길을 떠나자, 하인들은 맡겨진 재물로 이익을 얻으려고 일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즉시 장사를 시작하여 곧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도 곧 두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아들인 자를 제외한 모든 하인들이 그들의 주님을 위하여 이익을 남겼다. 그는 혼자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님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윽고

of the world, what have these things to do with one who believes this gospel, and who has hid his life in the surety of the eternal kingdom? You who are God-knowing and gospel-believing have already received the assurances of eternal life. Since your lives have been lived in the spirit and for the Father, nothing can be of serious concern to you. Kingdom builders, the accredited citizens of the heavenly worlds, are not to be disturbed by temporal upheavals or perturbed by terrestrial cataclysms. What does it matter to you who believe this gospel of the kingdom if nations overturn, the age ends, or all things visible crash, since you know that your life is the gift of the Son, and that it is eternally secure in the Father? Having lived the temporal life by faith and having yielded the fruits of the spirit as the righteousness of loving service for your fellows, you can confidently look forward to the next step in the eternal career with the same survival faith that has carried you through your first and earthly adventure in sonship with God.

176:3.3 (1916.3) “Each generation of believers should carry on their work, in view of the possible return of the Son of Man, exactly as each individual believer carries forward his lifework in view of inevitable and ever-impending natural death. When you have by faith once established yourself as a son of God, nothing else matters as regards the surety of survival. But make no mistake! this survival faith is a living faith, and it increasingly manifests the fruits of that divine spirit which first inspired it in the human heart. That you have once accepted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will not save you in the face of the knowing and persistent rejection of those truths which have to do with the progressive spiritual fruit-bearing of the sons of God in the flesh. You who have been with me in the Father’s business on earth can even now desert the kingdom if you find that you love not the way of the Father’s service for mankind.

176:3.4 (1916.4) “As individuals, and as a generation of believers, hear me while I speak a parable: There was a certain great man who, before starting out on a long journey to another country, called all his trusted servants before him and delivered into their hands all his goods. To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two, and to another one. And so on down through the entire group of honored stewards, to each he intrusted his goods according to their several abilities; and then he set out on his journey. When their lord had departed, his servants set themselves at work to gain profits from the wealth intrusted to them. Immediately he who had received five talents began to trade with them and very soon had made a profit of another five talents. In like manner he who had received two talents soon had gained two more. And so did all of these servants make gains for their master except him

종들의 주님이 갑자기 돌아왔으며, 계산하기 위하여 청지기들을 불렀다. 모두 그들의 주님 앞에 불려오자,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하인이 맡겨졌던 돈과 이익으로 남긴 다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주님, 당신께서 제게 투자하도록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이익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놓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자 그의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하인아, 너는 적은 것들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즉시 너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아들였던 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다른 두 달란트를 이익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너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그 때 한 달란트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회계하기 위하여 왔다. 이 하인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는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이 개인적으로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 이익을 기대하시니, 당신이 기만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맡겨진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맡기신 한 달란트를 땅 속에 안전하게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주님은 대답했다; '너는 나태하고 게으른 청지기이다. 너의 부지런한 동료 하인들이 오늘 바친 것과 같이 합당한 이익으로 내가 네게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네가 네 자신의 말로 고백하였다. 네가 이것을 알았으니,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이자라도 받아들이도록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은 청지기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무익한 이 하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서 풍족하게 갖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에게는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왕국의 관련자들 속에 활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성숙되어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진리들을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맺어야 하며 너희 동료 하인들에 대한 사심-없는 봉사에 대해 점점 더 성숙된 헌신을 현시해야 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임을 명심(銘心)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되,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 언제까지라고 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너희가 준비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만족을 드리게 되면, 너희는 기쁨과 대단히 큰 즐거

who received but one talent. He went away by himself and dug a hole in the earth where he hid his lord's money. Presently the lord of those servants unexpectedly returned and called upon his stewards for a reckoning. And when they had all been called before their master, he who had received the five talents came forward with the money which had been intrusted to him and brought five additional talents, saying, 'Lord, you gave me five talents to invest, and I am glad to present five other talents as my gain.' And then his lord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I will now set you as steward over many; enter forthwith into the joy of your lord.' And then he who had received the two talents came forward, saying: 'Lord, you delivered into my hands two talents; behold, I have gained these other two talents.' And his lord then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teward; you also have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and I will now set you over many; enter you into the joy of your lord.' And then there came to the accounting he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This servant came forward, saying, 'Lord, I knew you and realized that you were a shrewd man in that you expected gains where you had not personally labored; therefore was I afraid to risk aught of that which was intrusted to me. I safely hid your talent in the earth; here it is; you now have what belongs to you.' But his lord answered: 'You are an indolent and slothful steward. By your own words you confess that you knew I would require of you an accounting with reasonable profit, such as your diligent fellow servants have this day rendered. Knowing this, you ought, therefore, to have at least put my money into the hands of the bankers that on my return I might have received my own with interest.' And then to the chief steward this lord said: 'Take away this one talent from this unprofitable servant and give it to him who has the ten talents.'

176:3.5 (1917.1) "To every one who has, more shall be given, and he shall have abundance; but from him who has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You cannot stand still in the affairs of the eternal kingdom. My Father requires all his children to grow in grace and in a knowledge of the truth. You who know these truths must yield the increase of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manifest a growing devo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your fellow servants. And remember that, inasmuch as you minister to one of the least of my brethren, you have done this service to me.

176:3.6 (1917.2) "And so should you go about the work of the Father's business, now and henceforth, even forevermore. Carry on until I come. In faithfulness do that which is intrusted to you, and thereby shall you be ready for the reckoning call of death. And having thus lived for the glory of the Father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on, you shall enter with joy and exceedingly great pleasure into

움을 가지고 영속하는 왕국에서 영구히 봉사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은 빛의 자녀들을 새로운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의 세계로 언제나 인도한다. 정착되고 안정되며 명예로운 형태들로 굳어진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계시되는 진리는 너희의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증진되어야만 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맺힌 영적 열매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제적인 영적 성취가 보일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영적 실체들에서의 신성한 깊은 이해에 대한 수용능력을 개발하는 저들 신실한 하인들만이 “주님의 기쁨에 충분히 기대 동참하는” 희망을 언제나 가질 수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뒤따르는 세대들이, “주(主)여, 백년 또는 천 년 전에 당신께서 저희에게 맡겼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였다; 당신이 저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당신이 저희에게 주셨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른다. 영적 나태함을 나타내는 그런 변명이 진리에 대해 무기력한 그 청지기를 주(主)의 현존 안에서 정당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리의 주(主)는 너희의 손에 맡겨진 그 진리에 따라서 계산을 요구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책무들과 자질들에 대해 다음 세상에 가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이다. 선천적인 재능이 적든지 많은지, 정당하고 자비로운 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에 자질들이 이기적인 추구에만 사용되고, 영적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는 더 높은 임무에 생각을 쏟지 않는다면, 사람의 언제까지나 확대되는 봉사와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현시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기적인 청지기들은 자신의 고의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한다.

모든 이기적인 필사자들은, 자신의 나태함을 내놓고 주인의 탓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를 받은 불충한 하인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하늘의 진리를 그저 주어야 하고, 그렇게 줄 때, 너희가 그것을 돌보는 만큼, 이 진리는 배가될 것이며 은혜를 간직한 빛이 더 많이 비치질 것이다.

the eternal service of the everlasting kingdom.”

176:3.7 (1917.3) Truth is living; the Spirit of Truth is ever leading the children of light into new realms of spiritual reality and divine service. You are not given truth to crystallize into settled, safe, and honored forms. Your revelation of truth must be so enhanced by passing through your personal experience that new beauty and actual spiritual gains will be disclosed to all who behold your spiritual fruits and in consequence thereof are led to glorify the Father who is in heaven. Only those faithful servants who thus grow in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ho thereby develop the capacity for divine appreciation of spiritual realities, can ever hope to “enter fully into the joy of their Lord.” What a sorry sight for successive generations of the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to say, regarding their stewardship of divine truth: “Here, Master, is the truth you committed to us a hundred or a thousand years ago. We have lost nothing; we have faithfully preserved all you gave us; we have allowed no changes to be made in that which you taught us; here is the truth you gave us.” But such a plea concerning spiritual indolence will not justify the barren steward of truth in the presence of the Master.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committed to your hands will the Master of truth require a reckoning.

176:3.8 (1918.1) In the next world you will be asked to give an account of the endowments and stewardships of this world. Whether inherent talents are few or many, a just and merciful reckoning must be faced. If endowments are used only in selfish pursuits and no thought is bestowed upon the higher duty of obtaining increased yield of the fruits of the spirit, as they are manifested in the ever-expanding service of men and the worship of God, such selfish stewards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eir deliberate choosing.

176:3.9 (1918.2) And how much like all selfish mortals was this unfaithful servant with the one talent in that he blamed his slothfulness directly upon his lord. How prone is man, when he is confronted with the failures of his own making, to put the blame upon others, oftentimes upon those who least deserve it!

176:3.10 (1918.3) Said Jesus that night as they went to their rest: “Freely have you received; therefore freely should you give of the truth of heaven, and in the giving will this truth multiply and show forth the increasing light of saving grace, even as you minister it.”

제 4 장. 미가엘의 재림

4. THE RETURN OF MICHAEL

주(主)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언젠가 이 세

176:4.1 (1918.4) Of all the Master's teachings no one

상에 직접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큼 오해된 것이 없다. 미가엘이 영역의 필사자로서 그의 일곱 번째이며 마지막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행성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독특한 일생을 살았고, 아버지의 우주 힘과 권세에서의 무제한적 증여를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겨낸 세상에 한 번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란시아는 우주적 주권 획득에 있어서 미가엘이 일곱 번 탄생한 구체들 중의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의향을 비치셨다. 주(主)가 현세적인 해방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따르는 무리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그의 약속과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 집단들이 예루살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을 때에도 주(主)가 힘과 권세로 나타나시지 않게 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시대의 끝,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과 연관시키는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후에, 두 가지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약속한 첫 번째는, 자기 대신에 다른 선생,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오순절 날에 이것을 행하였다. 두 번째는, 그가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가 육신 속에서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이 행성에 어떻게, 어느 곳에, 또는 언제 방문하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가 꼭 한 번 그것을 암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육신 속에 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여러 번의 가능한 방문들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때에는 오직 영적 신앙의 눈에 의해서만 식별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가 오는 시대들 동안 여러 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주 칭호들 중에서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라는 칭호를 지니신 분이, 자신의 정복으로 그에게 그러한 독특한 칭호가 부여된 그 세계를 아마도 여러 번 방문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없다. 그의 이 땅에서의 재림이 현 세

phase has been so misunderstood as his promise sometime to come back in person to this world. It is not strange that Michael should be interested in sometime returning to the planet whereon he experienced his seventh and last bestowal, as a mortal of the realm. It is only natural to believe that Jesus of Nazareth, now sovereign ruler of a vast universe, would be interested in coming back, not only once but even many times, to the world whereon he lived such a unique life and finally won for himself the Father's unlimited bestowal of universe power and authority. Urantia will eternally be one of the seven nativity spheres of Michael in the winning of universe sovereignty.

176:4.2 (1918.5) Jesus did, on numerous occasions and to many individuals, declare his intention of returning to this world. As his followers awakened to the fact that their Master was not going to function as a temporal deliverer, and as they listened to his predictions of the overthrow of Jerusalem and the downfall of the Jewish nation, they most naturally began to associate his promised return with these catastrophic events. But when the Roman armies leveled the walls of Jerusalem, destroyed the temple, and dispersed the Judean Jews, and still the Master did not reveal himself in power and glory, his followers began the formulation of that belief which eventually associate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ith the end of the age, even with the end of the world.

176:4.3 (1918.6) Jesus promised to do two things after he had ascended to the Father, and after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had been placed in his hands. He promised, first, to send into the world, and in his stead, another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nd this he did on the day of Pentecost. Second, he most certainly promised his followers that he would sometime personally return to this world. But he did not say how, where, or when he would revisit this planet of his bestowal experience in the flesh. On one occasion he intimated that, whereas the eye of flesh had beheld him when he lived here in the flesh, on his return (at least on one of his possible visits) he would be discerned only by the eye of spiritual faith.

176:4.4 (1919.1) Many of us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Jesus will return to Urantia many times during the ages to come. We do not have his specific promise to make these plural visits, but it seems most probable that he who carries among his universe titles that of Planetary Prince of Urantia will many times visit the world whose conquest conferred such a unique title upon him.

176:4.5 (1919.2) We most positively believe that Michael will again come in person to Urantia, but we have not the slightest idea as to when or in what manner he may choose to come. Will his

대의 최종 심판과 연관된 때에 발생할 것인가, 또는 주인으로서의 치안법관 아들과의 공동 출현과 함께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발생할 것인가? 그 후의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관련하여 오실 것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돌아오실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최극 통치자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아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 눈을 가진 자들만이 그의 현존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의 출현은 먼 훗날로 연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모든 사건들이나 정해진 신(新)시대들에, 주(主)의 이 땅에의 직접적인 재림을 연관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 혹은 무엇과 관련하여 이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무 때라도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으며, 여러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집단의 연관-동료 아들들에 의해 정해지는 때까지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

미가엘의 이 땅에의 두 번째 강림은 중도자들은 물론 인간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가치를 지닌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중도자들에게 그 어떤 즉각적인 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연적인 죽음,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우주의 주권 통치자이신 바로 그 예수의 현존 앞에 직접 인도하는 우주 사건의 그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내몰아치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일상 사건보다도 더 큰, 아무런 실천적 중요성도 없다.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만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든지 또는 혹시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서 계시듯이, 너희도 그를 이 땅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자신감을 가지며 고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혹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그가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

second advent on earth be timed to occur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l judgment of this present age, either with or without the associated appearance of a Magisterial Son? Will he come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of some subsequent Urantian age? Will he come unannounced and as an isolated event? We do not know. Only one thing we are certain of, that is, when he does return, all the world will likely know about it, for he must come as the supreme ruler of a universe and not as the obscure babe of Bethlehem. But if every eye is to behold him, and if only spiritual eyes are to discern his presence, then must his advent be long deferred.

176:4.6 (1919.3) You would do well, therefore, to disassociate the Master's personal return to earth from any and all set events or settled epochs. We are sure of only one thing: He has promised to come back. We have no idea as to when he will fulfill this promise or in what connection. As far as we know, he may appear on earth any day, and he may not come until age after age has passed and been duly adjudicated by his associated Sons of the Paradise corps.

176:4.7 (1919.4) The second advent of Michael on earth is an event of tremendous sentimental value to both midwayers and humans; but otherwise it is of no immediate moment to midwayers and of no more practical importance to human beings than the common event of natural death, which so suddenly precipitates mortal man into the immediate grasp of that succession of universe events which leads directly to the presence of this same Jesus, the sovereign ruler of our universe. The children of light are all destined to see him, and it is of no serious concern whether we go to him or whether he should chance first to come to us. Be you therefore ever ready to welcome him on earth as he stands ready to welcome you in heaven. We confidently look for his glorious appearing, even for repeated comings, but we are wholly ignorant as to how, when, or in what connection he is destined to appear.

제 177 편 수요일, 휴식을 취한 날

⇨ 176

유랜시아 책

17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7 편 수요일, 휴식을 취한 날

섹션

소개

제 1 장. 홀로 하느님과 함께 한 하루

제 2 장. 어릴 때의 가정생활

제 3 장. 그 날 야영지에서는

제 4 장. 유다와 우두머리 사제들

제 5 장. 마지막 친교 시간

PAPER 177

WEDNESDAY, THE REST DAY

SECTIONS

Introduction

1. One Day Alone with God

2. Early Home Life

3. The Day at Camp

4. Judas and the Chief Priests

5. The Last Social Hour

소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달리지 않을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늘 그들의 수고로부터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특히 이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침 식사를 하였고, 야영지는 불길한 정적으로 싸여 있었다; 아침 식사시간이 반쯤 지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가 말씀하였다. “오늘은 너희가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후로 생긴 일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명백히 말하였던,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묵상해 보거라. 진리가 너희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과 은혜 속에서 너희가 매일 매일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주(主)는 안드레에게 하루 중 일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였으며, 사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예수가 혼자서 동산 위로 올라가실 준비가 되었을 때, 다윗 세베대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主)여, 바리새인들과 통치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혼자서 동산을 올라가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니; 당신과 동행하도록 세 사람을 보내어 안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충분히-무장을 한 세 사람

INTRODUCTION

177:0.1 (1920.1) WHEN the work of teaching the people did not press them, it was the custom of Jesus and his apostles to rest from their labors each Wednesday. On this particular Wednesday they ate breakfast somewhat later than usual, and the camp was pervaded by an ominous silence; little was said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morning meal. At last Jesus spoke: “I desire that you rest today. Take time to think over all that has happened since we came to Jerusalem and meditate on what is just ahead, of which I have plainly told you. Make sure that the truth abides in your lives, and that you daily grow in grace.”

177:0.2 (1920.2) After breakfast the Master informed Andrew that he intended to be absent for the day and suggested that the apostles be permitted to spend the time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hoosing, except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y go within the gates of Jerusalem.

177:0.3 (1920.3) When Jesus made ready to go into the hills alone, David Zebedee accosted him, saying: “You well know, Master, that the Pharisees and rulers seek to destroy you, and yet you make ready to go alone into the hills. To do this is folly; I will therefore send three men with you well prepared to see that no harm befalls you.” Jesus

의 건장한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다.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는 잘 알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일생을 마치고도 준비되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 손을 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혼자 있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무장된 감시병들은 물러갔지만, 예수가 홀로 출발할 때 요한 마가가 음식과 물이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 아마 시장하지 않겠느냐고 던지시 제언하였다. 주(主)는 요한에게 미소를 띠시면서 바구니를 받으러 가까이 가셨다.

제 1 장. 홀로 하느님과 함께 한 하루

예수가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받아 드시자, 그 소년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바구니를 놓아두고 기도에 몰두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잊으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점심 식사를 갖고 따라가면, 아마 더 자유롭게 경배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그 동안 아주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며,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는 동안 바구니 옆에 남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무모함에 놀랐지만, 요한은 바구니를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요한과 예수가 그 바구니를 같이 붙잡고 그곳에 서 있었다. 이윽고 주(主)는 같이 가도록 허락하고, 그 소년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네가 전심으로 나와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거절할 수 없구나. 우리들끼리 따로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는 무엇이라도 듣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물어보아도 괜찮으며, 서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자. 내가 먼저 점심 바구니를 들고 가고, 힘이 들면 내가 도움을 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는 그 날 저녁 해가 지기까지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主)는 진리를 갈망하는 소년과 함께 하고 자신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대해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요한 마지막 날을 보내셨다. 이 사건은 “소년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날”로 저 높은 곳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장면은 창조자께서 창조체와의 동료관계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슴속에 실제로 강하게 원한다면, 우주적인 하느님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사랑스런 동행자관계를 나눌 수 있으며, 하루 종일 동산에서 홀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일을 수 없는 황홀경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언덕에서 이 수요일에 요한 마가만이 그러한 독특한 체험을 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관련사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요한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요한은 사도들중의 하나가 될 만큼 충분한

looked over the three well-armed and stalwart Galileans and said to David: “You mean well, but you err in that you fail to understand that the Son of Man needs no one to defend him. No man will lay hands on me until that hour when I am ready to lay down my life in conformity to my Father’s will. These men may not accompany me. I desire to go alone, that I may commune with the Father.”

177:0.4 (1920.4) Upon hearing these words, David and his armed guards withdrew; but as Jesus started off alone, John Mark came forward with a small basket containing food and water and suggested that, if he intended to be away all day, he might find himself hungry. The Master smiled on John and reached down to take the basket.

1. ONE DAY ALONE WITH GOD

177:1.1 (1920.5) As Jesus was about to take the lunch basket from John’s hand, the young man ventured to say: “But, Master, you may set the basket down while you turn aside to pray and go on without it. Besides, if I should go along to carry the lunch, you would be more free to worship, and I will surely be silent. I will ask no questions and will stay by the basket when you go apart by yourself to pray.”

177:1.2 (1920.6) While making this speech, the temerity of which astonished some of the near-by listeners, John had made bold to hold on to the basket. There they stood, both John and Jesus holding the basket. Presently the Master let go and, looking down on the lad, said: “Since with all your heart you crave to go with me, it shall not be denied you. We will go off by ourselves and have a good visit. You may ask me any question that arises in your heart, and we will comfort and console each other. You may start out carrying the lunch, and when you grow weary, I will help you. Follow on with me.”

177:1.3 (1921.1) Jesus did not return to the camp that evening until after sunset. The Master spent this last day of quiet on earth visiting with this truth-hungry youth and talking with his Paradise Father. This event has become known on high as “the day which a young man spent with God in the hills.” Forever this occasion exemplifies the willingness of the Creator to fellowship the creature. Even a youth, if the desire of the heart is really supreme, can command the attention and enjoy the loving companionship of the God of a universe, actually experience the unforgettable ecstasy of being alone with God in the hills, and for a whole day. And such was the unique experience of John Mark on this Wednesday in the hills of Judea.

177:1.4 (1920.8) Jesus visited much with John, talking freely about the affairs of this world and the next. John told Jesus how much he regretted that he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예수께 말씀드렸으며, 페니키아로 여행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에서 첫 설교를 들은 이후로 줄곧 그들을 따라다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를 드렸다. 예수는 곧 다가올 사건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소년에게 이르시고, 그가 왕국에 대한 막강한 메신저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 시켰다.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날의 기억 때문에 감동되기는 하였지만, 겟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주(主)가 마지막으로 한 훈계, “자, 요한아,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실제 하루를 쉬었는데,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는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보낸 이 날에 일어났던 것은 아무 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신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 요한 마가는 줄곧 가까이에서 주(主)를 따라다녔다. 그 소년은 항상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예수가 주무실 때에만 잠을 잤다.

had not been old enough to be one of the apostles and expressed his great appreciation that he had been permitted to follow on with them since their first preaching at the Jordan ford near Jericho, except for the trip to Phoenicia. Jesus warned the lad not to become discouraged by impending events and assured him he would live to become a mighty messenger of the kingdom.

177:1.5 (1920.9) John Mark was thrilled by the memory of this day with Jesus in the hills, but he never forgot the Master's final admonition, spoken just as they were about to return to the Gethsemane camp, when he said: "Well, John, we have had a good visit, a real day of rest, but see to it that you tell no man the things which I told you." And John Mark never did reveal anything that transpired on this day which he spent with Jesus in the hills.

177:1.6 (1920.10) Throughout the few remaining hours of Jesus' earth life John Mark never permitted the Master for long to get out of his sight. Always was the lad in hiding near by; he slept only when Jesus slept.

제 2 장. 어릴 때의 가정생활

이 날 요한 마가와 함께 하는 동안, 예수는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의 체험을 서로 비교해 보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었다. 예수의 부모가 소유했던 것보다 요한의 부모가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소년 시절의 체험이 서로 매우 흡사하였다. 예수는 요한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을 다 잘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많은 것들을 말씀하였다. 그 소년이 자기가 “왕국에 대한 막강한 메신저”가 될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고 주(主)께 질문하자, 예수는 말했다:

“나는 네가 왕국 복음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현재 신앙과 사랑 위에 의존할 수 있으니 이들 본질특성들이 가정에서의 네 역할로 되어 있듯이 것처럼 어려서부터의 훈련 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부모가 서로 상대방에 진실한 애정을 품는 가정에서의 소산이며, 따라서 자아-중요에 대한 너의 개념을 드높이는 것처럼 위협스러운 만큼의 과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너의 확신과 충성에 대해, 하나가 다른 것에 반대되는, 네 부모님의 사랑 없는 조종의 결과 안에서 네 개인성이 왜곡을 참아온 것도 아니다. 너는 칭찬받을 만한 자아-확신을 보장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누려왔다. 그러나 너는 네 부모가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소유하였다는 것에서 또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너를 이웃 동무들과 함께 회당 학교에 보내면서도,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각종 탐닉의 형태와 그리고 많은 사치품에서 그들을 억누른 것은 지혜였고, 그리고 그

2. EARLY HOME LIFE

177:2.1 (1921.5) In the course of this day's visiting with John Mark, Jesus spent considerable time comparing their early childhood and later boyhood experiences. Although John's parents possessed more of this world's goods than had Jesus' parents, there was much experience in their boyhood which was very similar. Jesus said many things which helped John better to understand his parents and other members of his family. When the lad asked the Master how he could know that he would turn out to be a “mighty messenger of the kingdom,” Jesus said:

177:2.2 (1921.6) “I know you will prove loyal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because I can depend upon your present faith and love when these qualities are grounded upon such an early training as has been your portion at home. You are the product of a home where the parents bear each other a sincere affection, and therefore you have not been overloved so as injuriously to exalt your concept of self-importance. Neither has your personality suffered distortion in consequence of your parents' loveless maneuvering for your confidence and loyalty, the one against the other. You have enjoyed that parental love which insures laudable self-confidence and which fosters normal feelings of security. But you have also been fortunate in that your parents possessed wisdom as well as love; and it was wisdom which led them to withhold most forms of indulgence and many luxuries which wealth can buy while they sent you to the synagogue school along with your neighborhood

들은 네가 근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네게 용기를 북돋았었다. 너는 네 어린 친구 아모스와 함께, 우리가 설교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으로 왔었다. 너희 둘 모두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갈망하였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네 부모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동의하였다; 아모스의 부모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자기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녀왔던 복된 체험, 나아가서 네가 오늘 누리는 그러한 체험마저 그가 못하게 하였다. 아모스가 집에서 도망치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상처받은 사랑과 희생되어진 충성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체험, 독립 그리고 해방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네 부모가 그러하듯이, 그들의 자녀들이 네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개발하고 활기가 솟아나는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상처받은 사랑이나 억눌린 충성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한아, 사랑은 모든-현명한 존재들에 의해 증여될 때에는 우주의 최극 실체가 되지만, 필사자 부모들의 체험에서 현시되는 것처럼 위험하기도 하며 그리고 종종 어느 정도 이기적인 특징이 있다. 네가 결혼하게 되어 네 자식을 기르게 되거든, 네가 주는 사랑이 지혜로서 충고가 되고 지능으로서 인도되도록 하여라.

“네 어린 친구 아모스는 네가 믿는 만큼 왕국 복음을 믿고 있지만,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가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은, 충분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아모스는 정상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현명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도중의 하나와 너무도 흡사하다. 네가 정상적이고 잘-규율 잡힌 가정에서 일생의 첫 8년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네 모든 삶은 더욱 행복하고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네가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성격이 강건하고 원만하다. 그러한 어린 시절의 교육으로 인하여 생성된 충성심의 유형은 나로 하여금 네가 시작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예수와 요한은 가정생활에 대하여 한 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정은 인간적이거나 신성한 관계를 처음으로 알게 하는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모든 초기 개념에 대하여, 어린이는 부모와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주(主)는 요한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어린이는 우주에 대한 첫 인상을 어머니의 보살핌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그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대한 첫 관념을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어지는 어린이의 일생은 그의 어린 시절의 정신적 감정적 일생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이들 사회적 그리고 영적 관계로서 조건을 갖추며,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되고, 편안하게 또는 어렵게 된다. 인간 존재의 전체 여생은 실존에서의 처음 몇 년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

playfellows, and they also encouraged you to learn how to live in this world by permitting you to have original experience. You came over to the Jordan, where we preached and John's disciples baptized, with your young friend Amos. Both of you desired to go with us. When you returned to Jerusalem, your parents consented; Amos's parents refused; they loved their son so much that they denied him the blessed experience which you have had, even such as you this day enjoy. By running away from home, Amos could have joined us, but in so doing he would have wounded love and sacrificed loyalty. Even if such a course had been wise, it would have been a terrible price to pay for experience, independence, and liberty. Wise parents, such as yours, see to it that their children do not have to wound love or stifle loyalty in order to develop independence and enjoy invigorating liberty when they have grown up to your age.

177:2.3 (1922.1) “Love, John, is the supreme reality of the universe when bestowed by all-wise beings, but it is a dangerous and oftentimes semiselfish trait as it is manifested in the experience of mortal parents. When you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of your own to rear, make sure that your love is admonished by wisdom and guided by intelligence.

177:2.4 (1922.2) “Your young friend Amos believes this gospel of the kingdom just as much as you, but I cannot fully depend upon him; I am not certain about what he will do in the years to come. His early home life was not such as would produce a wholly dependable person. Amos is too much like one of the apostles who failed to enjoy a normal, loving, and wise home training. Your whole afterlife will be more happy and dependable because you spent your first eight years in a normal and well-regulated home. You possess a strong and well-knit character because you grew up in a home where love prevailed and wisdom reigned. Such a childhood training produces a type of loyalty which assures me that you will go through with the course you have begun.”

177:2.5 (1922.3) For more than an hour Jesus and John continued this discussion of home life. The Master went on to explain to John how a child is wholly dependent on his parents and the associated home life for all his early concepts of everything intellectual, social, moral, and even spiritual since the family represents to the young child all that he can first know of either human or divine relationships. The child must derive his first impressions of the universe from the mother's care; he is wholly dependent on the earthly father for his first ideas of the heavenly Father. The child's subsequent life is made happy or unhappy, easy or difficult, in accordance with his early mental and emotional life, conditioned by these social and spiritual relationships of the home. A

라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자녀 관계에 기초를 둔, 예수가 가르친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생활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을 고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진리를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생활이 즉시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의 가정이나 유대에 있었던 마가의 가정처럼 훌륭한 환경을 이루는 가정은 아직도 매우 드문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현명한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과 참 종교에 대한 충실한 헌신은 서로에게 상호적인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가정생활은 종교심을 향상시키고, 참된 종교심은 항상 가정을 영광되게 해준다.

옛날에 유대인의 가정들에 있었던, 발육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향들과 속박하는 특성들이, 더 잘 규제된 현대 가정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더 많은 자연발생적인 자유와, 훨씬 더 많은 개인적 해방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해방은 사랑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성심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며, 지혜의 지능적 단련에 의해 지도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거나 항상, 아버지라는 낱말이 자라나는 모든 자녀의 마음과 가슴속에서 값지게 간직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엄청난 책임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다.

제 3 장. 그 날 야영지에서는

사도들은 올리브 산을 거닐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이 날 대부분을 보냈지만, 오후가 되면서 예수가 돌아오시기를 몹시 고대하였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안전이 더욱 염려가 되었다; 그가 계시지 않음으로써 형언키 어려울 만큼 쓸쓸함을 느꼈다. 주(主)가 오직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홀로 동산에 오르시도록 허용되어야 했었는지에 대하여 종일 논란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요한 마가 대신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였다.

오후 중반쯤 되어서 나다니엘은 6명 정도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최극 욕망"에 대해 연설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릇된 점은 속으로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모두 요한 마가가 한 것처럼 그를 따라가고자 하였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데리

human being's entire afterlife is enormously influenced by what happens during the first few years of existence.

177:2.6 (1922.4) It is our sincere belief that the gospel of Jesus' teaching, founded as it is on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can hardly enjoy a world-wide acceptance until such a time as the home life of the modern civilized peoples embraces more of love and more of wisdom. Notwithstanding that parents of the twentieth century possess great knowledge and increased truth for improving the home and ennobling the home life, it remains a fact that very few modern homes are such good places in which to nurture boys and girls as Jesus' home in Galilee and John Mark's home in Judea, albeit the acceptance of Jesus' gospel will result in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home life. The love life of a wise home and the loyal devotion of true religion exert a profound reciprocal influence upon each other. Such a home life enhances religion, and genuine religion always glorifies the home.

177:2.7 (1923.1) It is true that many of the objectionable stunting influences and other cramping features of these olden Jewish homes have been virtually eliminated from many of the better-regulated modern homes. There is, indeed, more spontaneous freedom and far more personal liberty, but this liberty is not restrained by love, motivated by loyalty, nor directed by the intelligent discipline of wisdom. As long as we teach the child to pray, "Our Father who is in heaven," a tremendous responsibility rests upon all earthly fathers so to live and order their homes that the word *father* becomes worthily enshrined in the minds and hearts of all growing children.

3. THE DAY AT CAMP

177:3.1 (1923.2) The apostles spent most of this day walking about on Mount Olivet and visiting with the disciples who were encamped with them, but early in the afternoon they became very desirous of seeing Jesus return. As the day wore on, they grew increasingly anxious about his safety; they felt inexpressibly lonely without him. There was much debating throughout the day as to whether the Master should have been allowed to go off by himself in the hills, accompanied only by an errand boy. Though no man openly so expressed his thoughts, there was not one of them, save Judas Iscariot, who did not wish himself in John Mark's place.

177:3.2 (1923.3) It was about midafternoon when Nathaniel made his speech on "Supreme Desire" to about half a dozen of the apostles and as many disciples, the ending of which was: "What is wrong with most of us is that we are only halfhearted. We fail to love the Master as he loves

고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주(主) 앞으로 달려 나가 바구니를 내어 밀고, 주(主)가 그것을 잡으려 할 때 그 아이는 물려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主)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바구니와 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동산으로 가버리셨다.”

4시쯤 되어서 전령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벧세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다윗은 며칠 전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들이 주(主)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며, 예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과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메신저를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어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가족 모든 식구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였다.

다윗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말대로 하였고,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전 가족이 길을 떠났으며 내일 저녁 또는 모레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도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그 전령이 지금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을 만났던 20명 이상의 그리스인들이 야영지에 도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그리스인들, 적어도 그들 중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에 의해 훈련을 받아서, 왕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앞서 있었다.

그 날 저녁, 야영지로 돌아오신 예수는 그 그리스인들을 만났으며, 대부분의 수제자들과 사도들이 크게 혼란된 것은, 심지어는 그가 칠십 인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 20명의 그리스인들에게 사도 임명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야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두머리 사제들과 장로들이 몹시 놀랐다. 정말로, 하루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나시면서, “너희 집을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두고 나는 떠난다.”고 말씀하였었다. 그러나 군중들의 호의적인 태도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지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반면, 주(主)는 군중들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의 권한에 대해 모든 합당한 방법으로 간곡하게 확인시키셨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하루는 유월절을 준비함과 동시에 예수를 죽이려

us. If we had all wanted to go with him as much as John Mark did, he would surely have taken us all. We stood by while the lad approached the Master and offered him the basket, but when the Master took hold of it, the lad would not let go. And so the Master left us here while he went off to the hills with basket, boy, and all.”

177:3.3 (1923.4) About four o'clock, runners came to David Zebedee bringing him word from his mother at Bethsaida and from Jesus' mother. Several days previously David had made up his mind that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were going to kill Jesus. David knew they were determined to destroy the Master, and he was about convinced that Jesus would neither exert his divine power to save himself nor permit his followers to employ force in his defense. Having reached these conclusions, he lost no time in dispatching a messenger to his mother, urging her to come at once to Jerusalem and to bring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every member of his family.

177:3.4 (1923.5) David's mother did as her son requested, and now the runners came back to David bringing the word that his mother and Jesus' entire family were on the way to Jerusalem and should arrive sometime late on the following day or very early the next morning. Since David did this on his own initiative, he thought it wise to keep the matter to himself. He told no one, therefore, that Jesus' family was on the way to Jerusalem.

177:3.5 (1924.1) Shortly after noon, more than twenty of the Greeks who had met with Jesus and the twelve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arrived at the camp, and Peter and John spent several hours in conference with them. These Greeks, at least some of them, were well advanced in the knowledge of the kingdom, having been instructed by Rodan at Alexandria.

177:3.6 (1924.2) That evening, after returning to the camp, Jesus visited with the Greeks, and had it not been that such a course would have greatly disturbed his apostles and many of his leading disciples, he would have ordained these twenty Greeks, even as he had the seventy.

177:3.7 (1924.3) While all of this was going on at the camp, in Jerusalem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were amazed that Jesus did not return to address the multitudes. True, the day before, when he left the temple, he had said, “I leave your house to you desolate.” Bu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he would be willing to forgo the great advantage which he had built up in the friendly attitude of the crowds. While they feared he would stir up a tumult among the people, the Master's last words to the multitude had been an exhortation to conform in every reasonable manner with the authority of those “who sit in Moses' seat.” But it was a busy day in the city as they simultaneously prepared for the Passover and perfected their

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면서 바쁘게 지나갔다.

매일 밤마다 베다니에 나가는 대신에, 예수가 그곳에 머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안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야영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제 4 장. 유다와 우두머리 사제들

예수와 요한 마가가 그 야영지를 떠난 직후, 가롯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사라졌으며, 그 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동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主)의 특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의 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비공식 모임이었으며,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예수에 반대하여 제기될 그 고소의 본질을 의논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에게 선고하였던 그 사형 선고에 대하여 필수적인 민사적 인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를 로마 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적용될 그 절차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그 전 날, 유다는 예수가 악의가 없는 몽상가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며 그는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자신이 내리게 되었음을 자기 친척들과 자기 아버지의 가족의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비쳤었다. 유다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품위 있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를 몹시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탈퇴가 유대 통치자들에게 큰 사건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아침하는 말로써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가 산헤드린에서 큰 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선의이기는 하였지만 “무식한 갈릴리인들과 함께 하는 불행”으로 인한 오점을 결국 씻게 될 것이라고 피었다.

유다는 주(主)가 행하였던 기적들이 마귀들의 영주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가 자신의 힘을 자아-옹대함을 위해 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는 유대 통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리라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고, 실패한 운동과 정체성이 확인되는 존재라는 굴욕적인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명백하게 드러난 실패의 관념을 받아들이기 거절하였다. 그는 주(主)의 불굴의 성격과 장엄하고 자비로운 마음의 예리함을 속속들이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예수가 좋은-의미에서는 열광적이라고 하겠지만 아마도 실제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항상 이상

plans for destroying Jesus.

177:3.8 (1924.4) Not many people came to the camp, for its establishment had been kept a well-guarded secret by all who knew that Jesus was expecting to stay there in place of going out to Bethany every night.

4. JUDAS AND THE CHIEF PRIESTS

177:4.1 (1924.5) Shortly after Jesus and John Mark left the camp, Judas Iscariot disappeared from among his brethren, not returning until late in the afternoon. This confused and discontented apostle, notwithstanding his Master's specific request to refrain from entering Jerusalem, went in haste to keep his appointment with Jesus' enemies at the home of Caiaphas the high priest. This was an informal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had been appointed for shortly after ten o'clock that morning. This meeting was called to discuss the nature of the charges which should be lodged against Jesus and to decide upon the procedure to be employed in bringing him before the Roman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necessary civil confirmation of the death sentence which they had already passed upon him.

177:4.2 (1924.6) On the preceding day Judas had disclosed to some of his relatives and to certain Sadducean friends of his father's family that he ha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while Jesus was a well-meaning dreamer and idealist, he was not the expected deliverer of Israel. Judas stated that he would very much like to find some way of withdrawing gracefully from the whole movement. His friends flatteringly assured him that his withdrawal would be hailed by the Jewish rulers as a great event, and that nothing would be too good for him. They led him to believe that he would forthwith receive high honors from the Sanhedrin, and that he would at last be in a position to erase the stigma of his well-meant but "unfortunate association with untaught Galileans."

177:4.3 (1924.7) Judas could not quite believe that the mighty works of the Master had been wrought by the power of the prince of devils, but he was now fully convinced that Jesus would not exert his power in self-aggrandizement; he was at last convinced that Jesus would allow himself to be destroyed by the Jewish rulers, and he could not endure the humiliating thought of being identified with a movement of defeat. He refused to entertain the idea of apparent failure. He thoroughly understood the sturdy character of his Master and the keenness of that majestic and merciful mind, yet he derived pleasure from even the partial entertainment of the suggestion of one of his relatives that Jesus, while he was a well-meaning

하고 오해받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단지 거들어주는 위로의 제안으로 위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가 자기에게 더 큰 명예로운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상스러울 만큼 화가 나있는,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동안 자신이 사도들의 회계를 담당하는 명예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힘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영예를 받은 것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개심이 갑자기 그에게 엄습하였으며,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더욱 심사가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새롭게 압도하는 생각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그가 스스로 명예를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로 이것이 만약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혼동, 자부심, 절망, 그리고 결심이 무시무시하게 어우러진 곳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에 대한 배반을 정리하려고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다가 가야바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예수와 그의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의 왕국의 명분에 대한 주장을 저버리기로 그의 마음에 결심하면서, 예수와 새로운 왕국 복음에 자신을 처음으로 정체성 확인하였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명예와 영광이, 언젠가 최대한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보장을 받겠다고 결심하였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유다와 같은 이 야심을 한 때 가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웠는데,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그러하였다.

반역자는 가야바와 유대 통치자들 앞으로 나왔으며, 그들 옆에는 그의 사촌이 있었으며, 유다가 예수의 교활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 인도되도록 허용한 그의 실수를 발견하고 있으며, 갈릴리 사람과 가졌던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단념하기를 원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유대인 형제들의 자신감과 동료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하였다. 유다를 위한 이 대변자는, 만약에 예수가 감금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다는 것과, 그러한 잘못된 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증거로, 그리고 이제 진정 모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로, 예수에 대한 체포명령을 가진 대장과 함께 그를 조용히 붙잡을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써, 그리하여 군중을 동요시키는 위험이나 그의 체포를 유혈절 이후로 연기해야 할 필요성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헤드린에 자청해서 제안하려고 그가 왔다고 설명하였

fanatic, was probably not really sound of mind; that he had always appeared to be a strange and misunderstood person.

177:4.4 (1925.1) And now, as never before, Judas found himself becoming strangely resentful that Jesus had never assigned him a position of greater honor. All along he had appreciated the honor of being the apostolic treasurer, but now he began to feel that he was not appreciated; that his abilities were unrecognized. He was suddenly overcome with indignation that Peter, James, and John should have been honored with close association with Jesus, and at this time, when he was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home, he was bent on getting even with Peter, James, and John more than he was concerned with any thought of betraying Jesus. But over and above all, just then, a new and dominating thought began to occupy the forefront of his conscious mind: He had set out to get honor for himself, and if this could be secured simultaneously with getting even with those who had contributed to the greatest disappointment of his life, all the better. He was seized with a terrible conspiracy of confusion, pride, desperation, and determination. And so it must be plain that it was not for money that Judas was then on his way to the home of Caiaphas to arrange for the betrayal of Jesus.

177:4.5 (1925.2) As Judas approached the home of Caiaphas, he arrived at the final decision to abandon Jesus and his fellow apostles; and having thus made up his mind to desert the 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he was determined to secure for himself as much as possible of that honor and glory which he had thought would sometime be his when he first identified himself with Jesus and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All of the apostles once shared this ambition with Judas, but as time passed they learned to admire truth and to love Jesus, at least more than did Judas.

177:4.6 (1925.3) The traitor was presented to Caiaphas and the Jewish rulers by his cousin, who explained that Judas, having discovered his mistake in allowing himself to be misled by the subtle teaching of Jesus, had arrived at the place where he wished to make public and formal renunciation of his association with the Galilean and at the same time to ask for reinstatement in the confidence and fellowship of his Judean brethren. This spokesman for Judas went on to explain that Judas recognized it would be best for the peace of Israel if Jesus should be taken into custody, and that, as evidence of his sorrow in having participated in such a movement of error and as proof of his sincerity in now returning to the teachings of Moses, he had come to offer himself to the Sanhedrin as one who could so arrange with the captain holding the orders for Jesus' arrest that he could be taken into custody quietly,

다.

그의 사촌이 말을 다 끝냈을 때, 그가 유다를 소개하였는데, 그는 대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제 사촌이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하겠지만, 이러한 봉사의 대가로 무엇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매정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가야바의 얼굴에 비쳤던 경멸과 심지어 혐오의 표정을 유다가 식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가슴은 자아-영광에 너무 집착해 있었고 자아-고취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자 가야바는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유다야, 너는 수비대 대장에게 가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 네 주(主)를 우리에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라. 네 손으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는 이 봉사에 대한 너의 보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물러나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성전 수비대장과 상의를 하였다. 유다는 그 때 예수가 그 야영지에 계시지 않으며 그 날 밤 언제쯤 그가 돌아오실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날 밤(목요일) 예루살렘 사람들과 방문 중인 순례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예수를 체포하기로 동의하였다.

유다는 여러 날 동안 가져보지 못했었던, 위풍과 영광을 받을 생각으로 황홀해하며 야영지의 연관-동료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예수가 언젠가 새로운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협조하였었다. 그는 자기가 예상하였던 그러한 새 왕국은 건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남으리라고 믿으면서, 고대하고 있던 새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 자신의 실망감을, 예수와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예전 계층으로부터 얻을 명예와 보상의 즉각적인 실현과 거래하여 바꾸면서, 자신이 그렇게 기민하게 행동한 것을 기쁨으로 향유했다, 의식적으로 의도한 마지막 동기에서 볼 때, 예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은 이기적인 도망자의 비겁한 행위였고, 그가 지녔던 생각은 오직, 자신의 행위가 주(主)와 옛 연관-동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과 영광스러움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런 식이었다. 유다는 이러한 고의적이고 끈질기고 이기적이고 보복하려는 의식을 그의 마음속에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왔었으며, 그의 가슴에는 이들 증오에 차고 그리고 복수하고 배신하려는 악한 욕망들을 품고 있었다. 예수는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것처럼 유다를 사랑하고 신뢰하였으나, 유다는 그 보답으로써 전심으로 사랑하는 체험이나 충실한 신뢰를 개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일단 자아-추구에 온통 집착하고 그리고 시무룩하고 오래-억

thus avoiding any danger of stirring up the multitudes or the necessity of postponing his arrest until after the Passover.

177:4.7 (1925.4) When his cousin had finished speaking, he presented Judas, who, stepping forward near the high priest, said: “All that my cousin has promised, I will do, but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for this service?” Judas did not seem to discern the look of disdain and even disgust that came over the face of the hardhearted and vainglorious Caiaphas; his heart was too much set on self-glory and the craving for the satisfaction of self-exaltation.

177:4.8 (1926.1) And then Caiaphas looked down upon the betrayer while he said: “Judas, you go to the captain of the guard and arrange with that officer to bring your Master to us either tonight or tomorrow night, and when he has been delivered by you into our hands, you shall receive your reward for this service.” When Judas heard this, he went forth from the presence of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and took counsel with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s to the manner in which Jesus was to be apprehended. Judas knew that Jesus was then absent from the camp and had no idea when he would return that evening, and so they agreed among themselves to arrest Jesus the next evening (Thursday) after the people of Jerusalem and all of the visiting pilgrims had retired for the night.

177:4.9 (1926.2) Judas returned to his associates at the camp intoxicated with thoughts of grandeur and glory such as he had not had for many a day. He had enlisted with Jesus hoping some day to become a great man in the new kingdom. He at last realized that there was to be no new kingdom such as he had anticipated. But he rejoiced in being so sagacious as to trade off his disappointment in failing to achieve glory in an anticipated new kingdom for the immediate realization of honor and reward in the old order, which he now believed would survive, and which he was certain would destroy Jesus and all that he stood for. In its last motive of conscious intention, Judas's betrayal of Jesus was the cowardly act of a selfish deserter whose only thought was his own safety and glorification, no matter what might be the results of his conduct upon his Master and upon his former associates.

177:4.10 (1926.3) But it was ever just that way. Judas had long been engaged in this deliberate, persistent, selfish, and vengeful consciousness of progressively building up in his mind, and entertaining in his heart, these hateful and evil desires of revenge and disloyalty. Jesus loved and trusted Judas even as he loved and trusted the other apostles, but Judas failed to develop loyal trust and to experience wholehearted love in return. And how dangerous ambition can become

눌러온 복수심에 의해 최극으로 자극받으면, 야망이 얼마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지!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리고 그림자 같은 매혹에 자신들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면서,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의 영원한 세계의 영속하는 달성에 대한 더욱 높고 더욱 실체적인 성취에는 장님이 되어가는, 어리석은 저들 개인들의 삶 속에서는 실망이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 일이 되는지 모른다. 유다는 세상의 명예를 마음속에서 갈망하였고 이 욕망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사도들도 역시 마음속에 똑같은 세상의 명예를 갈망하였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예수를 사랑하였으며 그가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유다는 이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세례자 요한이 해롯에 의해 목 베임을 당한 후부터 줄곧 예수를 잠재의식적으로 비평을 해 왔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예수가 요한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서 항상 원망하였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다가 증오로 옷을 입혀서 자기 혼속에 간직했던 인간적 분개심과 심한 실망감은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이들 모두가 그의 잠재의식 마음속에서 잘 조직되었고, 그리고 그가 한때 형제들의 지지해주는 감화력에서 과감히 자신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리고는 예수의 적들의 영리한 아첨과 교활한 비웃음에 자신을 노출하고 있을 때, 그를 삼켜버리려고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다가 하늘 높이 희망을 띄어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말쑥이나 행동을 예수가 할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는 쓰라린 분개심의 상처가 항상 남았다; 그리고 이들 상처들이 늘어가면서, 너무 자주 상처받은, 가슴은 이제, 선의를 가졌지만 그러나 비겁하고 자아-중심적인 개인성에게 이런 불쾌한 체험을 입혔던 사람에 대한 모든 실제 애정을 잃었다.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비겁자였다. 따라서 그는 영광과 권력이 쉽게 손닿는 곳에 있는 듯 보였을 때 그것을 장악하기를 그가 거절하게 만든 동기는 예수가 비겁하게 소심한 것이라고 항상 여기려고 하였다. 사랑이 한 때는 진실하였다 할지라도, 실망과 질투 그리고 오랫동안의 분개심을 지니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적인 미움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안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장로들은 마침내 몇 시간 동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예수가 그 동안에는 여러 번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지만, 반역에 가담하겠다는 유다의 약속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 5 장. 마지막 친교 시간

이 날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야영지에서의 저녁 시간은 친교 시간이었다. 주(主)는 풀이 죽은

when it is once wholly wedded to self-seeking and supremely motivated by sullen and long-suppressed vengeance! What a crushing thing is disappointment in the lives of those foolish persons who, in fastening their gaze on the shadowy and evanescent allurements of time, become blinded to the higher and more real achievements of the everlasting attainments of the eternal worlds of divine values and true spiritual realities. Judas craved worldly honor in his mind and grew to love this desire with his whole heart; the other apostles likewise craved this same worldly honor in their minds, but with their hearts they loved Jesus and were doing their best to learn to love the truths which he taught them.

177:4.11 (1926.4) Judas did not realize it at this time, but he had been a subconscious critic of Jesus ever since John the Baptist was beheaded by Herod. Deep down in his heart Judas always resented the fact that Jesus did not save John. You should not forget that Judas had been a disciple of John before he became a follower of Jesus. And all these accumulations of human resentment and bitter disappointment which Judas had laid by in his soul in habiliments of hate were now well organized in his subconscious mind and ready to spring up to engulf him when he once dared to separate himself from the supporting influence of his brethren while at the same time exposing himself to the clever insinuations and subtle ridicule of the enemies of Jesus. Every time Judas allowed his hopes to soar high and Jesus would do or say something to dash them to pieces, there was always left in Judas's heart a scar of bitter resentment; and as these scars multiplied, presently that heart, so often wounded, lost all real affection for the one who had inflicted this distasteful experience upon a well-intentioned but cowardly and self-centered personality. Judas did not realize it, but he was a coward. Accordingly was he always inclined to assign to Jesus cowardice as the motive which led him so often to refuse to grasp for power or glory when they were apparently within his easy reach. And every mortal man knows full well how love, even when once genuine, can, through disappointment, jealousy, and long-continued resentment, be eventually turned into actual hate.

177:4.12 (1927.1) At las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could breathe easily for a few hours. They would not have to arrest Jesus in public, and the securing of Judas as a traitorous ally insured that Jesus would not escape from their jurisdiction as he had so many times in the past.

5. THE LAST SOCIAL HOUR

177:5.1 (1927.2) Since it was Wednesday, this evening at the camp was a social hour. The Master

사도들을 격려하려고 애쓰셨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파멸적인 사건들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주(主)가 파란만장했던 지난날들과 사راس러웠던 교제를 상기시켰을 때에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모든 사도들의 가족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하였으며, 다윗 세베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해 혹시 최근에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지를 물어보셨다. 다윗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의 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한 예수의 경고가 있던 때였다. 주(主)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열심히 따르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배척하면서 예전에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형태로 되돌아갔던 갈릴리에서의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던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그것을 천박하게 믿기는 하지만, 진리의 말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뿌리를 뻗쳐 내리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음을 오직 마음으로만 알고, 아직 가슴속에 체험하지 못한 저들은 실제로 고난이 올 때 그것으로 버티어내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 유대인 통치자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그리고 하나로 뭉쳐 공격할 때, 군중들이 당황하여 도망하든지, 아니면 격노하고 눈이 먼 이 통치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동안 놀라면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닥칠 때, 여전히 진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저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하였던 어떤 이들은 이미 저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온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휴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일은 힘이 강화되도록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라.”

야영지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하였다. 메신저들이 조용하게 오가면서 다윗 세베대에게만 보고하였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몇몇 사람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급히 피신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요한 마가는 주(主)와 함께 하루 종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지로 돌아온 후로 이상할 만큼 완강하게 침묵을 지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시키려고 하였지만, 예수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분명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주(主)의 유쾌한 기분과 평상시와는 다른 친근한 태도도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고립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갑작스럽게 내

endeavored to cheer his downcast apostles, but that was well-nigh impossible. They were all beginning to realize that disconcerting and crushing events were impending. They could not be cheerful, even when the Master recounted their years of eventful and loving association. Jesus made careful inquiry about the families of all of the apostles and, looking over toward David Zebedee, asked if anyone had heard recently from his mother, his youngest sister, or other members of his family. David looked down at his feet; he was afraid to answer.

177:5.2 (1927.3) This was the occasion of Jesus' warning his followers to beware of the support of the multitude. He recounted their experiences in Galilee when time and again great throngs of people enthusiastically followed them around and then just as ardently turned against them and returned to their former ways of believing and living. And then he said: "And so you must not allow yourselves to be deceived by the great crowds who heard us in the temple, and who seemed to believe our teachings. These multitudes listen to the truth and believe it superficially with their minds, but few of them permit the word of truth to strike down into the heart with living roots. Those who know the gospel only in the mind, and who have not experienced it in the heart, cannot be depended upon for support when real trouble comes. When the rulers of the Jews reach an agreement to destroy the Son of Man, and when they strike with one accord, you will see the multitude either flee in dismay or else stand by in silent amazement while these maddened and blinded rulers lead the teachers of the gospel truth to their death. And then, when adversity and persecution descend upon you, still others who you think love the truth will be scattered, and some will renounce the gospel and desert you. Some who have been very close to us have already made up their minds to desert. You have rested today in preparation for those times which are now upon us. Watch, therefore, and pray that on the morrow you may be strengthened for the days that are just ahead."

177:5.3 (1927.4) The atmosphere of the camp was charged with an inexplicable tension. Silent messengers came and went, communicating with only David Zebedee. Before the evening had passed, certain ones knew that Lazarus had taken hasty flight from Bethany. John Mark was ominously silent after returning to camp, notwithstanding he had spent the whole day in the Master's company. Every effort to persuade him to talk only indicated clearly that Jesus had told him not to talk.

177:5.4 (1928.1) Even the Master's good cheer and his unusual sociability frightened them. They all felt the certain drawing upon them of the terrible isolation which they realized was about to descend

려닥치리라고 깨달았다. 그들은 무엇이 올지 어림
꽃이 감지하였지만, 아무도 그 시험을 맞을 준비
가 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주(主)는 하루 종
일 다른 곳에 계셨었고; 그들은 그가 없었으므로
엄청나게 쓸쓸했다.

이 수요일 저녁은 주(主)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실제 시간이 되기까지, 그들의 영적 지위가 가
장 낮은 지위로 여겨지는 날이었다. 다음 날은 비
극의 금요일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루 더 있는 날
이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은
조바심 나는 시간들을 더욱 의젓하게 겪고 있었
다.

주(主)는 이 땅에서 자신이 선택하였던 가족
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홀어 보내시면
서, “형제들아, 가서 잠을 자라. 내일 우리가 일어
날 때까지 평안 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
가 그의 아들들인 것을 아는 즐거움을 체험할 날
이 하루가 더 있다.”고 말씀한 것은 자정이 거의 되
었을 때였다.

with crashing suddenness and inescapable terror.
They vaguely sensed what was coming, and none
felt prepared to face the test. The Master had been
away all day; they had missed him tremendously.

177:5.5 (1928.2) This Wednesday evening was the
low-tide mark of their spiritual status up to the
actual hour of the Master's death. Although the
next day was one more day nearer the tragic
Friday, still, he was with them, and they passed
through its anxious hours more gracefully.

177:5.6 (1928.3) It was just before midnight when
Jesus, knowing this would be the last night he
would ever sleep through with his chosen family
on earth, said, as he dispersed them for the night:
“Go to your sleep, my brethren, and peace be
upon you till we rise on the morrow, one more day
to do the Father's will and experience the joy of
knowing that we are his sons.”

제 178 편 야영지에서의 마지막 날

⇨ 177

유랜시아 책

17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8 편 야영지에서의 마지막 날

섹션

소개

제 1 장. 아들관계와 시민관계에 관한 강연

제 2 장. 점심 식사 후

제 3 장.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PAPER 178

LAST DAY AT THE CAMP

SECTIONS

Introduction

1. Discourse on Sonship and Citizenship

2. After the Noontime Meal

3. On the Way to the Supper

소개

예수는 육체로 육신화한 신성한 아들로써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 목요일을, 사도들과 몇몇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하였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 식사시간이 끝나자 주(主)는 곧 야영지에서 약간 위에 있는 계획된 장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으며, 많은 새로운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그 날 초저녁 시간에 사도들에게 다른 강연을 하였지만, 목요일 오전에 하였던 이 말씀은 야영지에 머무르는 사도들과 선택된 제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 무리들에게 주신 작별 설교였다. 열 두 사도는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사도들은 그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아마도 다가오는 유월절 경축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가 그를 그 도시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나누려고 열 두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기 직전인, 오후 중반까지도 유다는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INTRODUCTION

178:0.1 (1929.1) JESUS planned to spend this Thursday, his last free day on earth as a divine Son incarnated in the flesh, with his apostles and a few loyal and devoted disciples. Soon after the breakfast hour on this beautiful morning, the Master led them to a secluded spot a short distance above their camp and there taught them many new truths. Although Jesus delivered other discourses to the apostles during the early evening hours of the day, this talk of Thursday forenoon was his farewell address to the combined camp group of apostles and chosen disciples, both Jews and gentiles. The twelve were all present save Judas. Peter and several of the apostles remarked about his absence, and some of them thought Jesus had sent him into the city to attend to some matter, probably to arrange the details of their forthcoming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udas did not return to the camp until midafternoon, a short time before Jesus led the twelve into Jerusalem to partake of the Last Supper.

제 1 장. 아들관계와 시민관계에 관한 강연

1. DISCOURSE ON SONSHIP AND CITIZENSHIP

예수는 믿을만한 오십 여명의 제자들에게 거의 두 시간 동안 말씀하였으며, 하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의 관계, 하느님께 대하여 아들이 되는

178:1.1 (1929.2) Jesus talked to about fifty of his trusted followers for almost two hours and answered a score of questions regarding the

것과 이 세상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였다. 이 때 한 강연을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변들과 함께 현대의 언어로 다시 간추려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질적 속성의 이 세상 왕국들은 법을 집행하는데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세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하늘의 왕국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기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 하늘의 왕국, 영으로-태어난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신분 존재는 오직 영의 힘에 의해서만 퍼져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의 차별성은 신자들의 왕국이 세속 정부의 왕국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루기 힘들고 자격 없는 구성원들의 단련을 실시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관계와 세속 또는 시민 정부에서의 시민(市民)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은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만일 시저가 하느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극의 경배를 자기에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너희는 잘못 인도된 세상 통치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 왕국의 임무를 확장시키는 일을 함에서, 언젠가는 그 통치자들이 신자가 될지도 모를 그러한 땅에 있는 정부의 물리적인 무력을 너희가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형제신분과 봉사는 왕국 복음의 모퉁이들이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는 문명의 입장에서 볼 때, 왕국에서의 아들관계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왕국의 사랑의 부름은 믿지 아니하고 투쟁적인 세상 왕국 시민들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에 대하여 효력적인 파괴자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각자 삶의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사심-없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 성향의 자녀들은 너희가 소유한 영적 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필사자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서, 진정 이 세상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왕국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계몽되고 영으로-해방된 하늘의 왕국의 자녀로서,

rel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o the kingdoms of this world, concerning the relation of sonship with God to citizenship in earthly governments. This discourse, together with his answers to questions, may be summarized and restated in modern language as follows:

178:1.2 (1929.3) The kingdoms of this world, being material, may often find it necessary to employ physical force in the execution of their laws and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In the kingdom of heaven true believers will not resort to the employment of physical force. The kingdom of heaven, being a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spirit-born sons of God, may be promulgated only by the power of the spirit. This distinction of procedure refers to the relations of the kingdom of believers to the kingdoms of secular government and does not nullify the right of social groups of believers to maintain order in their ranks and administer discipline upon unruly and unworthy members.

178:1.3 (1929.4) There is nothing incompatible between sonship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citizenship in the secular or civil government. It is the believer's duty to render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which are God's. There cannot be any disagreement between these two requirements, the one being material and the other spiritual, unless it should develop that a Caesar presumes to usurp the prerogatives of God and demand that spiritual homage and supreme worship be rendered to him. In such a case you shall worship only God while you seek to enlighten such misguided earthly rulers and in this way lead them also to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 in heaven. You shall not render spiritual worship to earthly rulers; neither should you employ the physical forces of earthly governments, whose rulers may sometime become believers, in the work of furthering the mission of the spiritual kingdom.

178:1.4 (1930.1) Sonship in the kingdom, from the standpoint of advancing civilization, should assist you in becoming the ideal citizens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since brotherhood and service are the cornerstone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love call of the spiritual kingdom should prove to be the effective destroyer of the hate urge of the unbelieving and war-minded citizens of the earthly kingdoms. But these material-minded sons in darkness will never know of your spiritual light of truth unless you draw very near them with that unselfish social service which is the natural outgrowth of the bearing of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 life experience of each individual believer.

178:1.5 (1930.2) As mortal and material men, you are indeed citizens of the earthly kingdoms, and you should be good citizens, all the better for having become reborn spirit sons of the heavenly kingdom. As faith-enlightened and spirit-liberated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에 마주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의 거룩한 책무; 하느님을-아는 신자들의 형제친분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현세의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왕국의 축진을 위해 현세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봉사로 올바른 생명활동의 자세를 현시하여야 한다. 왕국 복음에는 막강한 진리의 영이 함께 하고 있으며, 바로 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의 열매들, 너희의 진지하고도 사랑에 찬 봉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너희의 힘을 배가시키는 지레 받침이 될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을 다룰 때 지혜를 나타내고 충명성을 드러내 보여라.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사소한 논쟁들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들을 푸는 일에 너희 자신이 숙달되어있음을 보여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에서의 부족한 모든 것 안에서—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너희는 왕국의 깨우친 자녀들이 된 결과로,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왕국의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시민 관련사들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사심-없는 봉사의 자세와 하느님께 대한 이성적인 경배는 왕국을 믿는 모든 자들을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하며, 반면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소명에 의해 보다 쉽게 하늘왕국 안에서 아들관계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세상 정부의 통치자들이 종교적 독재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찾아나서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오직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이고,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세계를 깨우치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왕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해방과 지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과 해방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곧 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며 왕국은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일지

sons of the kingdom of heaven, you face a double responsibility of duty to man and duty to God while you voluntarily assume a third and sacred obligation: service to the brotherhood of God-knowing believers.

178:1.6 (1930.3) You may not worship your temporal rulers, and you should not employ temporal power in the furtherance of the spiritual kingdom; but you should manifest the righteous ministry of loving service to believers and unbelievers alike.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re resides the mighty Spirit of Truth, and presently I will pour out this same spirit upon all flesh. The fruits of the spirit, your sincere and loving service, are the mighty social lever to uplift the races of darkness, and this Spirit of Truth will become your power-multiplying fulcrum.

178:1.7 (1930.4) Display wisdom and exhibit sagacity in your dealings with unbelieving civil rulers. By discretion show yourselves to be expert in ironing out minor disagreements and in adjusting trifling misunderstandings. In every possible way — in everything short of your spiritual allegiance to the rulers of the universe — seek to live peaceably with all men. Be you always as wise as serpents but as harmless as doves.

178:1.8 (1930.5) You should be made all the better citizens of the secular government as a result of becoming enlightened sons of the kingdom; so should the rulers of earthly governments become all the better rulers in civil affairs as a result of believing this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The attitude of unselfish service of man and intelligent worship of God should make all kingdom believers better world citizens, while the attitude of honest citizenship and sincere devotion to one's temporal duty should help to make such a citizen the more easily reached by the spirit call to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178:1.9 (1930.6) So long as the rulers of earthly governments seek to exercise the authority of religious dictators, you who believe this gospel can expect only trouble, persecution, and even death. But the very light which you bear to the world, and even the very manner in which you will suffer and die for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in themselves, eventually enlighten the whole world and result in the gradual divorcement of politics and religion. The persistent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some day bring to all nations a new and unbelievable liberation, intellectual freedom, and religious liberty.

178:1.10 (1931.1) Under the soon-coming persecutions by those who hate this gospel of joy and liberty, you will thrive and the kingdom will prosper. But you will stand in grave danger in subsequent times when most men will speak well of kingdom believers and many in high places nominally accept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Learn

라도 왕국에 신실하도록 노력하라. 사랑 넘치는 단련이 안일주의에 젖어있는 너희 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으니,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이 너희를 거친 길로 인도하도록 유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 왕국 복음—하느님과 의 아들관계의 신앙을 실현화하는 최극의 기쁨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극의 욕망—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방향전환하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사명활동과 깨우쳐 주는 지적인 교제 그리고 향상시켜 주는 사회봉사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되;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것들 전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막강한 사명활동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영으로-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영원한 하느님과 의 살아있는 동료관계에서의 확신을 부여하는 그러한 개인적 실현으로 인하여, 왕국을 믿는 사람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더욱 막강하고 숭고한 사명활동과 변환의 사회적 부산물이다.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세속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거나 정의(正義)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의 대(大)계명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국을 믿는 사람이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면, 그가 그러한 정부에 속한 현재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라, 그렇지만 그의 시민 봉사에서 모든 평범한 시민관계의 특색들이 필사 사람의 마음과 영원한 하느님의 내주하는 영의 고귀한 관계적-연합의 영적 깨우침으로 인하여 증진되었음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월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을 갖추 수 있다면, 너희는 혹시라도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영적 교제와 사회적 봉사의 병합이라는 생명의 물이 부족하여 죽어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관계라는 의식은, 것처럼 인간 개인성의 모든 선천적인 힘에 대한 막강한 자극의 소유자가 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의 일생 봉사 전체를 힘차게 고무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피동적인 신비주의자나 생기 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심지어 생활 필수품마저 마련해 주리라는 허구적인 섭리를 무기력하게 신뢰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실수를 범하는 필사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너그려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날 때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정의(正義)를 지키는데 있어

to be faithful to the kingdom even in times of peace and prosperity. Tempt not the angels of your supervision to lead you in troublous ways as a loving discipline designed to save your ease-drifting souls.

178:1.11 (1931.2) Remember that you are commissioned to preach this gospel of the kingdom — the supreme desire to do the Father's will coupled with the supreme joy of the faith realization of sonship with God — and you must not allow anything to divert your devotion to this one duty. Let all mankind benefit from the overflow of your loving spiritual ministry, enlightening intellectual communion, and uplifting social service; but none of these humanitarian labors, nor all of them, should be permitted to take the place of proclaiming the gospel. These mighty ministrations are the social by-products of the still more mighty and sublime ministrations and transformations wrought in the heart of the kingdom believer by the living Spirit of Truth and by the personal realization that the faith of a spirit-born man confers the assurance of living fellowship with the eternal God.

178:1.12 (1931.3) You must not seek to promulgate truth nor to establish righteousness by the power of civil governments or by the enactment of secular laws. You may always labor to persuade men's minds, but you must never dare to compel them. You must not forget the great law of human fairness which I have taught you in positive form: Whatsoever you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even so to them.

178:1.13 (1931.4) When a kingdom believer is called upon to serve the civil government, let him render such service as a temporal citizen of such a government, albeit such a believer should display in his civil service all of the ordinary traits of citizenship as these have been enhanced by the spiritual enlightenment of the ennobling association of the mind of mortal man with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eternal God. If the unbeliever can qualify as a superior civil servant, you should seriously question whether the roots of truth in your heart have not died from the lack of the living waters of combined spiritual communion and social service. The consciousness of sonship with God should quicken the entire life service of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 has become the possessor of such a mighty stimulus to all the inherent powers of a human personality.

178:1.14 (1931.5) You are not to be passive mystics or colorless ascetics; you should not become dreamers and drifters, supinely trusting in a fictitious Providence to provide even the necessities of life. You are indeed to be gentle in your dealings with erring mortals, patient in your intercourse with ignorant men, and forbearing under provocation; but you are also to be valiant in

서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강해야 하며,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왕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고, 겨자 씨 낱알과 같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왔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씨앗과 같으며, 대대로 똑같은 살아있는 씨앗으로 남아있으면서, 뒤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요구와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서의 경로 안에서 새로운 현시활동과 수용될 수 있는 성장으로 어김없이 스스로를 펼치는 씨앗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왔던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나는 그것이 영적 성장, 증가 그리고 적응하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개별존재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증가하는 활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며, 더욱 깊은 영적 힘을 들어내 보여야만 한다. 복음이 단순히 거룩한 기억,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권위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불충실함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립된 영도자들과 인지된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나,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임무만을 받았음을 명심해라. 너희는 옛 방법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옛 믿음의 한 가운데에 숨쉴 있게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용납하라. 진리를 경멸하는 자들이 너희를 몰아세울 때에만 논쟁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고집불통의 불신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진리를 힘차게 지키며 굳건히 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변화무쌍한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분투하지 말라. 악의에 가득 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형제신분 안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러운 시민, 올바른 장인,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인 동포, 납득하는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지금 그리고 세상 끝날 까지도 있을 것이다.

예수가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에는 거의 한 시간이 되었을 무렵이었으며, 그들은 다윗과 그의 연관-동료들이 그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해 놓은

defense of righteousness, mighty in the promulgation of truth, and aggressive in the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178:1.15 (1931.6) This gospel of the kingdom is a living truth. I have told you it is like the leaven in the dough, like the grain of mustard seed; and now I declare that it is like the seed of the living being, whic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ile it remains the same living seed, unfailingly unfolds itself in new manifestations and grows acceptably in channels of new adaptation to the peculiar needs and conditions of each successive generation. The revelation I have made to you is a *living revelation*, and I desire that it shall bear appropriate fruits in each individual and in each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piritual growth, increase, and adaptative developm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gospel must show increasing vitality and exhibit greater depth of spiritual power. It must not be permitted to become merely a sacred memory, a mere tradition about me and the times in which we now live.

178:1.16 (1932.1) And forget not: We have made no direct attack upon the persons or upon the authority of those who sit in Moses' seat; we only offered them the new light, which they have so vigorously rejected. We have assailed them only by the denunciation of their spiritual disloyalty to the very truths which they profess to teach and safeguard. We clashed with these established leaders and recognized rulers only when they threw themselves directly in the way of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sons of men. And even now, it is not we who assail them, but they who seek our destruction. Do not forget that you are commissioned to go forth preaching only the good news. You are not to attack the old ways; you are skillfully to put the leaven of new truth in the midst of the old beliefs. Let the Spirit of Truth do his own work. Let controversy come only when they who despise the truth force it upon you. But when the willful unbeliever attacks you, do not hesitate to stand in vigorous defense of the truth which has saved and sanctified you.

178:1.17 (1932.2) Throughout the vicissitudes of life, remember always to love one another. Do not strive with men, even with unbelievers. Show mercy even to those who spitefully abuse you. Show yourselves to be loyal citizens, upright artisans, praiseworthy neighbors, devoted kinsmen, understanding parents, and sincere believers in the brotherhood of the Father's kingdom. And my spirit shall be upon you, now and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178:1.18 (1932.3) When Jesus had concluded his teaching, it was almost one o'clock, and they immediately went back to the camp, where David

야영지로 곧 돌아갔다.

and his associates had lunch ready for them.

제 2 장. 점심 식사 후

오전에 주어진 주(主)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중들 가운데에서 그리스인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해하였다. 열 한 명의 사도들마저도 미래의 정치적 왕국들과 왕국 신자들의 뒤이어지는 세대에 대한 주(主)의 암시에 어리둥절하였다.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 세상 사명활동 끝이 다가오는 것과, 복음 활동의 연장되는 미래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그러한 다가오는 재난과 그리고 그것을 개의치 않는, 주(主)의 변함없이 유쾌한 태도는 물론, 시간에서의 광대한 뻗침에 걸쳐 확대하고 그리고 뒤이어지는 이 땅의 수많은 현재적 왕국과의 관계를 포용하면서, 그가 반복하여 하늘왕국의 미래 활동행위에 대한 암시했던, 그의 오전 강연과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모든 사도들은 나사르가 베다니로부터 서둘러 피하였다는 사실을 이 날 정오에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들을 근절시키려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냉혹한 결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비밀요원들의 작업을 통하여,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계획의 진행에 관해 충분히 기별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음모에서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보를 제자들은 물론 다른 어떤 사도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그는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가 이미 알고계신지를 대담하게 질문하였다—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주(主)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질문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렇다, 다윗아, 나는 그것에 관해 모두 안다, 그리고 네가 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네 자신의 가슴에서 하느님의 뜻이 끝에 가서는 지배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아브너의 말을 전하려고 필라델피아로부터 메신저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다윗과의 대화는 더 계속되지 못하였다. 이 전령은 아브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필라델피아로 출발하였다: “네 일을 계속하라. 만일 내가 너희와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끝날 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즈음에 빌립이 주(主)께 와서 물었다: “주(主)여, 유월절이 임박하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먹을 준비를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베다

2. AFTER THE NOONTIME MEAL

178:2.1 (1932:4) Not many of the Master's hearers were able to take in even a part of his forenoon address. Of all who heard him, the Greeks comprehended most. Even the eleven apostles were bewildered by his allusions to future political kingdoms and to successive generations of kingdom believers. Jesus' most devoted followers could not reconcile the impending end of his earthly ministry with these references to an extended future of gospel activities. Some of these Jewish believers were beginning to sense that earth's greatest tragedy was about to take place, but they could not reconcile such an impending disaster with either the Master's cheerfully indifferent personal attitude or his forenoon discourse, wherein he repeatedly alluded to the future transactions of the heavenly kingdom, extending over vast stretches of time and embracing relations with many and successive temporal kingdoms on earth.

178:2.2 (1932:5) By noon of this day all the apostles and disciples had learned about the hasty flight of Lazarus from Bethany. They began to sense the grim determination of the Jewish rulers to exterminate Jesus and his teachings.

178:2.3 (1932:6) David Zebedee, through the work of his secret agents in Jerusalem, was fully advised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plan to arrest and kill Jesus. He knew all about the part of Judas in this plot, but he never disclosed this knowledge to the other apostles nor to any of the disciples. Shortly after lunch he did lead Jesus aside and, making bold, asked him whether he knew — but he never got further with his question. The Master, holding up his hand, stopped him, saying: “Yes, David, I know all about it, and I know that you know, but see to it that you tell no man. Only doubt not in your own heart that the will of God will prevail in the end.”

178:2.4 (1933:1) This conversation with David was interrupted by the arrival of a messenger from Philadelphia bringing word that Abner had heard of the plot to kill Jesus and asking if he should depart for Jerusalem. This runner hastened off for Philadelphia with this word for Abner: “Go on with your work. If I depart from you in the flesh, it is only that I may return in the spirit. I will not forsake you.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178:2.5 (1933:2) About this time Philip came to the Master and asked: “Master, seeing that the time of the Passover draws near, where would you have us prepare to eat it?” And when Jesus heard

로와 요한을 데려 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먹을 만찬에 대해서 지도하겠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먼저 이 일을 마친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主)가 이 일들에 대하여 빌립과 말하는 것을 들은 유다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다른 편으로 가서 주(主)와 이야기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있던 다윗 세베대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예수는 세 사도들에게 말했다;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면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거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주(主)가 사도들과 만찬을 드실 손님 접대실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은, 넓은 다락방을 그 집주인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사도들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성 문 근처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의 뒤를 쫓아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들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전 날 오후 동안 주(主)와 요한 마가가 따로 그 언덕에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였으며, 유다가 그들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게 되면 자신을 체포하도록 적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요한 마가와 비밀리에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유다는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만나는 장소를 알지 못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을 무척 따라가고 싶어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유다가 식량을 위한 얼마만큼의 돈을 다윗에게 건네주자, 다윗은 그에게 말했다; “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실제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돈을 미리 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유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하였다: “그렇구나 다윗, 나는 그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예루살렘의 뒤숭숭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돈을 너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주(主)를 배척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경우에도, 너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기금 전부와 모든 예금한 돈의 증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

Philip's question, he answered: “Go and bring Peter and John, and I will give you directions concerning the supper we will eat together this night. As for the Passover, that you will have to consider after we have first done this.”

178:2.6 (1933.3) When Judas heard the Master speaking with Philip about these matters, he drew closer that he might overhear their conversation. But David Zebedee, who was standing near, stepped up and engaged Judas in conversation while Philip, Peter, and John went to one side to talk with the Master.

178:2.7 (1933.4) Said Jesus to the three: “Go immediately into Jerusalem, and as you enter the gate, you will meet a man bearing a water pitcher. He will speak to you, and then shall you follow him. When he leads you to a certain house, go in after him and ask of the good man of that house, ‘Where is the guest chamber wherein the Master is to eat supper with his apostles?’ And when you have thus inquired, this householder wi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all furnished and ready for us.”

178:2.8 (1933.5) When the apostles reached the city, they met the man with the water pitcher near the gate and followed on after him to the home of John Mark, where the lad's father met them and showed them the upper room in readiness for the evening meal.

178:2.9 (1933.6) And all of this came to pass as the result of an understanding arrived at between the Master and John Mark during the afternoon of the preceding day when they were alone in the hills. Jesus wanted to be sure he would have this one last meal undisturbed with his apostles, and believing if Judas knew beforehand of their place of meeting he might arrange with his enemies to take him, he made this secret arrangement with John Mark. In this way Judas did not learn of their place of meeting until later on when he arrived there in company with Jesus and the other apostles.

178:2.10 (1933.7) David Zebedee had much business to transact with Judas so that he was easily prevented from following Peter, John, and Philip, as he so much desired to do. When Judas gave David a certain sum of money for provisions, David said to him: “Judas, might it not be well,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ovide me with a little money in advance of my actual needs?” And after Judas had reflected for a moment, he answered: “Yes, David, I think it would be wise. In fact, in view of the disturbed conditions in Jerusalem, I think it would be best for me to turn over all the money to you. They plot against the Master, and in case anything should happen to me, you would not be hampered.”

178:2.11 (1934.1) And so David received all the apostolic cash funds and receipts for all money on

도들은 다음 날 저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세 명의 사도들이 돌아와서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예수께 고한 것은 4시 반경이었다. 주(主)는 즉시 열 두 사도들 앞에 서서 베다니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열 두 사도 전부와 함께 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제 3 장.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면서 기드온 계곡을 지나가는 군중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예수와 열 두 사도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나기 위해 올리브 산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다. 전날 밤에 예수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머무셨던 장소에 가까이 오자, 그들은 서서 침묵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무의식중에 잠시 멈추었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고, 예수가 해가 진후에 도시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연관-동료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앉아서 쉬도록 하여라.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너희와 형제로 지냈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곳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땅에서의 나의 사명활동과 관련하여 정말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체험에 동참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셔왔던 일로 내가 머지않아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한동안 경고하였던 것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왕국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가버나움의 동산에서 너희를 따로 세웠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던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나를 대표하고 내가 시작한 일들을 완결하라고 너희를 보내고자 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도시의 멸망에서 너희가 죽고 그로서 왕국 복음 선포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는 가야하지만, 내가 나사로에게 사람의 복수를 피하여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고 지도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deposit. Not until the evening of the next day did the apostles learn of this transaction.

178:2.12 (1934.2) It was about half past four o'clock when the three apostles returned and informed Jesus that everything was in readiness for the supper. The Master immediately prepared to lead his twelve apostles over the trail to the Bethany road and on into Jerusalem. And this was the last journey he ever made with all twelve of them.

3. ON THE WAY TO THE SUPPER

178:3.1 (1934.3) Seeking again to avoid the crowds passing through the Kidron valley back and forth between Gethsemane Park and Jerusalem, Jesus and the twelve walked over the western brow of Mount Olivet to meet the road leading from Bethany down to the city. As they drew near the place where Jesus had tarried the previous evening to discourse o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y unconsciously paused while they stood and looked down in silence upon the city. As they were a little early, and since Jesus did not wish to pass through the city until after sunset, he said to his associates:

178:3.2 (1934.4) “Sit down and rest yourselves while I talk with you about what must shortly come to pass. All these years have I lived with you as brethren, and I have taught you the truth concerning the kingdom of heaven and have revealed to you the mysteries thereof. And my Father has indeed done many wonderful works in connection with my mission on earth. You have been witnesses of all this and partakers in the experience of being laborers together with God. And you will bear me witness that I have for some time warned you that I must presently return to the work the Father has given me to do; I have plainly told you that I must leave you in the world to carry on the work of the kingdom.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set you apart, in the hills of Capernaum. The experience you have had with me, you must now make ready to share with others.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so am I about to send you forth to represent me and finish the work I have begun.

178:3.3 (1934.5) “You look down on yonder city in sorrow, for you have heard my words telling of the end of Jerusalem. I have forewarned you lest you should perish in her destruction and so delay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Likewise do I warn you to take heed lest you needlessly expose yourselves to peril when they come to take the Son of Man. I must go, but you are to remain to witness to this gospel when I have gone, even as I directed that Lazarus flee from the wrath of man that he might live to make known the glory of God. If it is the Father's will that I depart, nothing you may do can frustrate the divine plan.

신성한 계획을 꺾을 수는 없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너희 혼이 영의 힘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한 보호가 필요치 않다;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도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곧 닥칠 일들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언제까지나-나아가는 하늘의 왕국 안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이미 성취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그곳에는 하느님이 지으신 도시와 그리고 일생의 습성이 진리 안에서 정의(正義)와 기쁨인 그러한 세상에 대한 계시가, 빛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건데, 신앙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고 진리의 살아있는 봉사로서 그곳에 머무르는 너희 모두는 높은 곳에 있는 세상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적 왕국 안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단단히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하였던 일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많은 슬픔을 견디어내야 하며—이들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내가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을 완결하고 바야흐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일을 완결하고나서, 나의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주(主)가 말씀을 마치시고 일어나시자,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올리브 산을 내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좁은 길을 따라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군중들이 그들을 밀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 누구도 하느님의 아들이 그의 선택된 왕국의 대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필사자 회합을 향해가는 그의 길을 지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도들도 또한 자기들 중의 한 사람이 이미 주(主)를 적의 손에 넘기는 배반하는 음모에 가담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 마가는 도시 안에 들 때까지 모든 길을 따라왔고, 그리고는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갔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they kill you also. Let your souls be valiant in defense of the gospel by spirit power but be not misled into any foolish attempt to defend the Son of Man. I need no defense by the hand of man; the armies of heaven are even now near at hand; but I am determined to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and therefore must we submit to that which is so soon to come upon us.

178:3.4 (1934.6) “When you see this city destroyed, forget not that you have entered already upon the eternal life of endless service in the ever-advancing kingdom of heaven, even of the heaven of heavens. You should know that in my Father’s universe and in mine are many abodes, and that there awaits the children of light the revelation of cities whose builder is God and worlds whose habit of life is righteousness and joy in the truth. I have brought the kingdom of heaven to you here on earth, but I declare that all of you who by faith enter therein and remain therein by the living service of truth, shall surely ascend to the worlds on high and sit with me in the spirit kingdom of our Father. But first must you gird yourselves and complete the work which you have begun with me. You must first pass through much tribulation and endure many sorrows — and these trials are even now upon us — and when you have finished your work on earth, you shall come to my joy, even as I have finished my Father’s work on earth and am about to return to his embrace.”

178:3.5 (1935.1) When the Master had spoken, he arose, and they all followed him down Olivet and into the city. None of the apostles, save three, knew where they were going as they made their way along the narrow streets in the approaching darkness. The crowds jostled them, but no one recognized them nor knew that the Son of God was passing by on his way to the last mortal rendezvous with his chosen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neither did the apostles know that one of their own number had already entered into a conspiracy to betray the Master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178:3.6 (1935.2) John Mark had followed them all the way into the city, and after they had entered the gate, he hurried on by another street so that he was waiting to welcome them to his father’s home when they arrived.

제 179 편 최후의 만찬

⇨ 178

유랜시아 책

18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79 편 최후의 만찬

섹션

소개

제 1 장. 우선권에 대한 욕심

제 2 장. 만찬을 시작함

제 3 장. 사도들의 발을 씻으심

제 4 장. 배반자에게 한 마지막 말씀

제 5 장. 기념 만찬을 확립함

PAPER 179

THE LAST SUPPER

SECTIONS

Introduction

1. The Desire for Preference

2. Beginning the Supper

3. Washing the Apostles' Feet

4. Last Words to the Betrayer

5. Establishing the Remembrance Supper

소개

이 목요일 오후 시간 중에, 빌립이 임박한 유월절에 관하여 주(主)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축하에 대한 그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에 먹도록 되어 있는 유월절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날 정오 무렵부터 유월절 경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계산하였으므로, 이것은 토요일 유월절 만찬이 금요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어느 시간에 먹게 됨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월절을 하루 일찍 경축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그가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 전에 체포될 것을 아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목요일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유월절 경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사도들은 예수가 지난 여러 차례의 유월절의 경우에 양을 잡지 않고 경축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유대교 체계 가운데 희생물을 제공하는 어떤 예배봉사에도 한 번도 직접 참여하

INTRODUCTION

179:0.1 (1936.1) DURING the afternoon of this Thursday, when Philip reminded the Master about the approaching Passover and inquired concerning his plans for its celebration, he had in mind the Passover supper which was due to be eaten on the evening of the next day, Friday. It was the custom to begin the preparations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not later than noon of the preceding day. And since the Jews reckoned the day as beginning at sunset, this meant that Saturday's Passover supper would be eaten on Friday night, sometime before the midnight hour.

179:0.2 (1936.2) The apostles were, therefore, entirely at a loss to understand the Master's announcement that they would celebrate the Passover one day early. They thought, at least some of them did, that he knew he would be placed under arrest before the time of the Passover supper on Friday night and was therefore calling them together for a special supper on this Thursday evening. Others thought that this was merely a special occasion which was to precede the regular Passover celebration.

179:0.3 (1936.3) The apostles knew that Jesus had celebrated other Passovers without the lamb; they knew that he did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any sacrificial service of the Jewish system. He had

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에는 양고기를 대접하지 않았다. 더구나 유월절 밤에 양이 생략된 것을 보았어도 사도들에게 큰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며, 게다가 이번 만찬이 하루 일찍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양고기가 빠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요한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환영 인사를 받은 후에, 사도들은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한편 예수는 뒤에 남아 마가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주(主)께서 오직 열 두 사도들과 이 절기를 경축하고자 한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시중을 들기 위해 기다리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다.

제 1 장. 우선권에 대한 욕심

요한 마가가 위층으로 안내하자, 사도들은 매우 크고 넓은 방에 만찬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빵과 포도주와 물 그리고 향신료들이 식탁 한 쪽 끝에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 쪽을 제외한 긴 식탁 둘레에는 살림이 넉넉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열 세 개의 의자들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 다락방으로 들어온 열 두 사도들은 바로 문 곁에 놓여 있는 물 항아리들과 대야들 그리고 수건들이 자기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봉사에 수종을 들 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요한 마가가 나가자마자 각자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발을 씻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하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자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가슴 안에서 꿈꿈이 파지면서 그곳에 잠서 있는 동안, 식탁의 자리 배치를 둘러보면서, 오른 쪽에 다른 의자 하나와 같이 있는 주인의 높다란 침대 의자와 그리고, 이 둘째로 명예로운 주인의 오른쪽 자리의 맞은편까지 식탁 둘레를 돌며 정돈된 열한개의 의자를 주목하였다.

그들은 주(主)가 곧 올라오실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먼저 앉아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자리를 지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난처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주인 석 원편에 있는 명예 석으로 다가갔으며, 마치 우선권이 있는 손님인 것처럼 그곳에 기대어 누우려고 하였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즉시로 다른 사도들 간에 뜨거운 경쟁이 일어나게 하였다. 유다가 명예 석을 차지하자마자 요한 세베대는 주인석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으로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유다와 요한의

many times partaken of the paschal lamb as a guest, but always, when he was the host, no lamb was served. It would not have been a great surprise to the apostles to have seen the lamb omitted even on Passover night, and since this supper was given one day earlier, they thought nothing of its absence.

179:0.4 (1936.4) After receiving the greetings of welcome extended by the father and mother of John Mark, the apostles went immediately to the upper chamber while Jesus lingered behind to talk with the Mark family.

179:0.5 (1936.5) It had been understood beforehand that the Master was to celebrate this occasion alone with his twelve apostles; therefore no servants were provided to wait upon them.

1. THE DESIRE FOR PREFERENCE

179:1.1 (1936.6) When the apostles had been shown upstairs by John Mark, they beheld a large and commodious chamber, which was completely furnished for the supper, and observed that the bread, wine, water, and herbs were all in readiness on one end of the table. Except for the end on which rested the bread and wine, this long table was surrounded by thirteen reclining couches, just such as would be provided for the celebration of the Passover in a well-to-do Jewish household.

179:1.2 (1936.7) As the twelve entered this upper chamber, they noticed, just inside the door, the pitchers of water, the basins, and towels for laving their dusty feet; and since no servant had been provided to render this service, the apostles began to look at one another as soon as John Mark had left them, and each began to think within himself, Who shall wash our feet? And each likewise thought that it would not be he who would thus seem to act as the servant of the others.

179:1.3 (1937.1) As they stood there, debating in their hearts, they surveyed the seating arrangement of the table, taking note of the higher divan of the host with one couch on the right and eleven arranged around the table on up to opposite this second seat of honor on the host's right.

179:1.4 (1937.2) They expected the Master to arrive any moment, but they were in a quandary as to whether they should seat themselves or await his coming and depend on him to assign them their places. While they hesitated, Judas stepped over to the seat of honor, at the left of the host, and signified that he intended there to recline as the preferred guest. This act of Judas immediately stirred up a heated dispute among the other apostles. Judas had no sooner seized the seat of honor than John Zebedee laid claim to the next

이와 같은 자리 선택에 매우 화가 나서, 성이 난 다른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탁을 두벽두벽 걸어 돌아가서 요한 세베대가 선택한 반대편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할 생각을 하였으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보기 흉한 자부심에 대해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예수가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시고 그렇게 주께 넘겨 스스로 명예를 높이는 자를 대신하여, 자기를 더 높은 자로 부르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사도들은 혹은 유다 쪽으로 혹은 베드로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모두 앉게 되었다. 그들은 말굽-쇠 모양의 식탁 옆으로 놓여 있는 비스듬한 의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主)의 오른 편에는 요한이 앉았고; 왼편에서부터 유다, 시몬 젤로페, 마태, 야고보 세베대, 안드레, 알페오의 쌍둥이 아들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 베드로가 앉았다.

그들이 모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를 상고해 보는 전통적 관례를 경축하기 위해,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모인 것이 사실이다. 이 만찬은 그들의 예수와의 마지막 회동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장엄한 환경 속에서, 유다를 선두로 하여 사도들 모두가 명예와 우선권 그리고 개인적 고취를 구하는 오랜 성향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주(主)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성이 나서 서로 대꾸하는 말투에 몰입되어 있었고, 잠시 머뭇거리시면서 주(主)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쑤도 없이 자리에 앉았으며, 그들의 자리 배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이제 그들의 말이 아직 씻기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찬을 나눌 준비가 모두 갖추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는 그 어떤 기쁜 기미도 없었다. 주(主)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참을 만큼 충분히 감정을 통제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불평하는 시선을 주고받는 데에 빠져 있었다.

제 2 장. 만찬을 시작함

주(主)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으신 후, 잠깐 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다. 예수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신 후 미소를 띠심으로써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말했다: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였는지 모른다. 나의 때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너희와 식사를 같이하고자 하였으며,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오늘 밤 나눌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내일에 관하여는, 우

preferred seat, the one on the right of the host. Simon Peter was so enraged at this assumption of choice positions by Judas and John that, as the other angry apostles looked on, he marched clear around the table and took his place on the lowest couch, the end of the seating order and just opposite to that chosen by John Zebedee. Since others had seized the high seats, Peter thought to choose the lowest, and he did this, not merely in protest against the unseemly pride of his brethren, but with the hope that Jesus, when he should come and see him in the place of least honor, would call him up to a higher one, thus displacing one who had presumed to honor himself.

179:1.5 (1937.3) With the highest and the lowest positions thus occupied, the rest of the apostles chose places, some near Judas and some near Peter, until all were located. They were seated about the U-shaped table on these reclining divans in the following order: on the right of the Master, John; on the left, Judas, Simon Zelotes, Matthew, James Zebedee, Andrew, the Alpheus twins, Philip, Nathaniel, Thomas, and Simon Peter.

179:1.6 (1937.4) They are gathered together to celebrate, at least in spirit, an institution which antedated even Moses and referred to the times when their fathers were slaves in Egypt. This supper is their last rendezvous with Jesus, and even in such a solemn setting, under the leadership of Judas the apostles are led once more to give way to their old predilection for honor, preference, and personal exaltation.

179:1.7 (1937.5) They were still engaged in voicing angry recriminations when the Master appeared in the doorway, where he hesitated a moment as a look of disappointment slowly crept over his face. Without comment he went to his place, and he did not disturb their seating arrangement.

179:1.8 (1937.6) They were now ready to begin the supper, except that their feet were still unwashed, and they were in anything but a pleasant frame of mind. When the Master arrived, they were still engaged in making uncomplimentary remarks about one another, to say nothing of the thoughts of some who had sufficient emotional control to refrain from publicly expressing their feelings.

2. BEGINNING THE SUPPER

179:2.1 (1937.7) For a few moments after the Master had gone to his place, not a word was spoken. Jesus looked them all over and, relieving the tension with a smile, said: “I have grea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I wanted to eat with you once more before I suffered, and realizing that my hour has come, I arranged to have this supper with you tonight, for, as concerns the morrow, we are all in the hands of the Father, whose will I have

리 모두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 분의 뜻을 내가 집행하려고 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내가 완결한 후에 그가 내게 주실 왕국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앉을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포도주와 물을 섞은 후에 예수께로 잔을 가져왔으며, 다대오로부터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그대로 들고 계셨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끝나자 말했다: “이 잔을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나누어라. 잔을 받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며 그 때문에 포도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너희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앉을 그때는 다가오는 왕국에서 있을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이미 이르렀음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활동이 거의 완결되었음을 아셨다. 주(主)는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이미 계시하였고 그의 자비를 인류에게 나타내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니 하늘과 땅이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받는 것 까지도, 성취하였음을 아셨다.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가 그 날 밤에 자신을 적에게 넘겨주기로 충분히 결심한 것도 알고 계셨다. 이러한 배반행위는 유다가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또한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암흑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깨닫고 계셨다. 자신을 영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육신적으로 죽이려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주(主)는 오직 한 가지 염려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자신이 택한 무리들의 안전과 구원이었다. 그리므로, 주(主)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신의 권한 아래에 두셨음을 충분히 아시고, 이제 형제다운 사랑의 비유를 연출하려고 준비하였다.

come to execute. I shall not again eat with you until you sit down with me in the kingdom which my Father will give me when I have finished that for which he sent me into this world.”

179:2.2 (1938.1) After the wine and the water had been mixed, they brought the cup to Jesus, who, when he had received it from the hand of Thaddeus, held it while he offered thanks. And when he had finished offering thanks, he said: “Take this cup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and, when you partake of it, realize that I shall not again drink with you the fruit of the vine since this is our last supper. When we sit down again in this manner, it will be in the kingdom to come.”

179:2.3 (1938.2) Jesus began thus to talk to his apostles because he knew that his hour had come. He understood that the time had come when he was to return to the Father, and that his work on earth was almost finished. The Master knew he had revealed the Father's love on earth and had shown forth his mercy to mankind, and that he had completed that for which he came into the world, even to the receiving of all power and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Likewise, he knew Judas Iscariot had fully made up his mind to deliver him that night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He fully realized that this traitorous betrayal was the work of Judas, but that it also pleased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the prince of darkness. But he feared none of those who sought his spiritual overthrow any more than he feared those who sought to accomplish his physical death. The Master had but one anxiety, and that was for the safety and salvation of his chosen followers. And so, with the full knowledge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authority, the Master now prepared to enact the parable of brotherly love.

제 3 장. 사도들의 발을 씻으심

유월절 음식의 첫 잔을 마신 후에는 주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이어서 음식을 먹은 후 두 번째 잔을 든 후에는 모든 손님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서 손을 씻어야 했다. 사도들은 주(主)가 의례적으로 손을 씻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첫 잔을 다 마신 후에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 물병들과 대야 그리고 수건들이 놓여있는 문 쪽으로 조용히 가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主)가 걸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발 씻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궁금증은 경악으로 변하였다. 조금 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식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기 흉하게 다투었던 이 열 두 사도들이, 예수 가 시몬 베드로가 앉아 있는 만찬석의 가장 낮은

3. WASHING THE APOSTLES' FEET

179:3.1 (1938.3) After drinking the first cup of the Passover, it was the Jewish custom for the host to arise from the table and wash his hands. Later on in the meal and after the second cup, all of the guests likewise rose up and washed their hands. Since the apostles knew that their Master never observed these rites of ceremonial hand washing,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what he intended to do when, after they had partaken of this first cup, he arose from the table and silently made his way over to near the door, where the water pitchers, basins, and towels had been placed. And their curiosity grew into astonishment as they saw the Master remove his outer garment, gird himself with a towel, and begin to pour water into one of the foot basins. Imagine the amazement of these

자리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쪽으로 가서 치마치 하인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으시고 시몬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라. 주(主)가 무릎을 꿇자 열 두 사도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일어났다; 심지어 배반자 유다도 자신의 파렴치 행위를 잠시 잊어버리고 놀람과 경의 그리고 경탄을 발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다.

일어서 있는 시몬 베드로는 올려다보시는 주(主)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수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정말로 씻고자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육신으로의 의지는 약했지만 여하튼, 베드로는 주(主)를 사랑하였다. 이 갈릴리 어부는 예수의 신성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충분하게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 주(主)의 신성한 속성을 실제로 의심한 적은 결코 없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명예로 받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천한 하인과 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으시고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의 생각에 그의 혼이 의분을 느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이윽고 주(主)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성을 찾게 되자, 모든 동료사도 모두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하였다.

크게 당황했던 얼마간의 순간이 지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主)여, 실제로 제 발을 씻으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는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로는 이들 모든 일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길게 숨을 쉬고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께서는 결단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도들도 예수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려는 것을 허용하기 거부한다는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특별한 장면의 극적인 호소에 처음에는 가롯 유다의 가슴도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한 그의 지성이 그 광경에서 심판에 미치자, 이런 겸손의 태도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으로 주(主)가 가지신 목적을 저버리기로 결정한 것에는 그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놀라서 서 있을 때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야, 내가 선언하건대, 만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서 너와 나는 그 어떤 상관도 없을 것이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예수가 자기 발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베드로는

twelve men, who had so recently refused to wash one another's feet, and who had engaged in such unseemly disputes about positions of honor at the table, when they saw him make his way around the unoccupied end of the table to the lowest seat of the feast, where Simon Peter reclined, and, kneeling down in the attitude of a servant, make ready to wash Simon's feet. As the Master knelt, all twelve arose as one man to their feet; even the traitorous Judas so far forgot his infamy for a moment as to arise with his fellow apostles in this expression of surprise, respect, and utter amazement.

179:3.2 (1938.4) There stood Simon Peter, looking down into the upturned face of his Master. Jesus said nothing; it was not necessary that he should speak. His attitude plainly revealed that he was minded to wash Simon Peter's feet. Notwithstanding his frailties of the flesh, Peter loved the Master. This Galilean fisherman was the first human being wholeheartedly to believe in the divinity of Jesus and to make full and public confession of that belief. And Peter had never since really doubted the divine nature of the Master. Since Peter so revered and honored Jesus in his heart, it was not strange that his soul resented the thought of Jesus' kneeling there before him in the attitude of a menial servant and proposing to wash his feet as would a slave. When Peter presently collected his wits sufficiently to address the Master, he spoke the heart feelings of all his fellow apostles.

179:3.3 (1939.1) After a few moments of this great embarrassment, Peter said, “Master, do you really mean to wash my feet?” And then, looking up into Peter's face, Jesus said: “You may not fully understand what I am about to do, but hereafter you will know the meaning of all these things.” Then Simon Peter, drawing a long breath, said, “Mas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And each of the apostles nodded their approval of Peter's firm declaration of refusal to allow Jesus thus to humble himself before them.

179:3.4 (1939.2) The dramatic appeal of this unusual scene at first touched the heart of even Judas Iscariot; but when his vainglorious intellect passed judgment upon the spectacle, he concluded that this gesture of humility was just one more episode which conclusively proved that Jesus would never qualify as Israel's deliverer, and that he had made no mistake in the decision to desert the Master's cause.

179:3.5 (1939.3) As they all stood there in breathless amazement, Jesus said: “Peter, I declare that, if I do not wash your feet, you will have no part with me in that which I am about to perform.” When Peter heard this declaration, coupled with the fact that Jesus continued kneeling there at his feet, he

자신이 존중하며 사랑하는 분의 소망에 따르겠다는 맹목적인 목인의 결정들 중 하나를 내렸다. 주(主)가 제안한 이 봉사의 상연에는 주(主)의 일과 관련하여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비로소 떠오르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 발을 씻도록 허락하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특징인 성급한 몸가짐으로 말했다: “주(主)여,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주(主)는 베드로의 발을 씻을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이미 정결한 사람은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밤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정결하지만—모두 다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 발에 묻은 먼지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씻겨야만 하겠다. 그 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봉사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곧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새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려고 함이다.”

주(主)는 아무 말씀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도시면서 열 두 사도들의 발을 씻었으며 유다도 빼놓지 않았다. 열 두 사도들의 발을 다 씻으신 예수는 겹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주빈석으로 돌아왔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도들을 둘러보신 후에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실제로 납득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主)라고 부르고, 내가 정말로 그러하니, 너희는 잘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주(主)가 너희 발을 씻었다면, 너희들도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봉사를 주(主)는 것처럼 기꺼워하며 하였다는 이 비유로부터 너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의 나의 일생 속에서 봉사의 길을 너희가 보았으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비로운 용기를 갖게 될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 물질세계 안에서 힘을 얻는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왜 이처럼 느리게 깨닫는다는 말이나?

“오늘 밤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나의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지를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명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며, 하늘왕국의 대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식탁에는 높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로 여기는 내 옆자리는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섰을 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한편으로는 때때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은인이라 불린다는

made one of those decisions of blind acquiescence in compliance with the wish of one whom he respected and loved. As it began to dawn on Simon Peter that there was attached to this proposed enactment of service some signification that determined one's future connection with the Master's work, he not only became reconciled to the thought of allowing Jesus to wash his feet but, in his characteristic and impetuous manner, said: “Then, Master, wash not my feet only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179:3.6 (1939.4) As the Master made ready to begin washing Peter's feet, he said: “He who is already clean needs only to have his feet washed. You who sit with me tonight are clean — but not all. But the dust of your feet should have been washed away before you sat down at meat with me. And besides, I would perform this service for you as a parable to illustrate the meaning of a new commandment which I will presently give you.”

179:3.7 (1939.5) In like manner the Master went around the table, in silence, washing the feet of his twelve apostles, not even passing by Judas. When Jesus had finished washing the feet of the twelve, he donned his cloak, returned to his place as host, and after looking over his bewildered apostles, said:

179:3.8 (1939.6)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I have done to you? You call me Master, and you say well, for so I am. If, then, the Master has washed your feet, why was it that you were unwilling to wash one another's feet? What lesson should you learn from this parable in which the Master so willingly does that service which his brethren were unwilling to do for one anoth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eithe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he who sends him. You have seen the way of service in my life among you, and blessed are you who will have the gracious courage so to serve. But why are you so slow to learn that the secret of greatness in the spiritual kingdom is not like the methods of power in the material world?

179:3.9 (1940.1) “When I came into this chamber tonight, you were not content proudly to refuse to wash one another's feet, but you must also fall to disputing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ould have the places of honor at my table. Such honors the Pharisees and the children of this world seek, but it should not be so among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Do you not know that there can be no place of preferment at my table? Do you not understand that I love each of you as I do the others? Do you not know that the place nearest me, as men regard such honors, can mean nothing concerning your standing in the kingdom of heaven? You know that the kings of the gentiles have lordship over their subjects, while those who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래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남을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드는 자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보통대로 하면 식탁에 앉은 자가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시중드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나와 함께 기꺼이 하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에서, 미래의 영광 안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시자, 최후의 만찬의 다음 차례를 위해 알페오 쌍둥이가 쓴 나물과 말린 과일 조각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제 4 장. 배반자에게 한 마지막 말씀

사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들었지만, 주(主)의 유쾌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곧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오래지 않아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특별한 행사에 걸맞은 쾌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식사 순서가 반쯤 지났을 때, 예수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나누기를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너희에게 말해 왔었고, 어둠의 악의 기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기에, 내일 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므로, 나는 유월절 하루 전인 오늘 은밀한 이 방에서 너희와 함께 만찬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해왔으며,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저버리고 나의 적들의 손에 나를 넘길 필요는 없었다.”

열 두 사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발 씻는 비유와 뒤이어진 주(主)의 강연 때문에, 자아-주장과 자아-확신을 이미 모두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황한 음성으로 더듬거리면서 “그게 저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모두 묻고 난 후에 예수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반역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혼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데 실패한 자의 가슴속에 감추어진 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영적 몰락에 앞서서 일어나는 지적인 자부심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여러 해 동안 같이 하던 나의 친구가, 지금 나의 빵을 먹는 자가, 지금도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면서도, 나를 저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exercise this authority are sometimes called benefactors. But it shall not be so in the kingdom of heaven. He who would be great among you, let him become as the younger; while he who would be chief, let him become as one who serves. Who is the greater, he who sits at meat, or he who serves? Is it not commonly regarded that he who sits at meat is the greater? But you will observe that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If you are willing to become fellow servants with me in doing the Father's will, in the kingdom to come you shall sit with me in power, still doing the Father's will in future glory.”

179:3.10 (1940.2)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he Alpheus twins brought on the bread and wine, with the bitter herbs and the paste of dried fruits, for the next course of the Last Supper.

4. LAST WORDS TO THE BETRAYER

179:4.1 (1940.3) For some minutes the apostles ate in silence, but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ter's cheerful demeanor they were soon drawn into conversation, and ere long the meal was proceeding as if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d occurred to interfere with the good cheer and social accord of this extraordinary occasion. After some time had elapsed, in about the middle of this second course of the meal, Jesus, looking them over, said: “I have told you how much I desired to have this supper with you, and knowing how the evil forces of darkness have conspired to bring about the death of the Son of Man, I determined to eat this supper with you in this secret chamber and a day in advance of the Passover since I will not be with you by this time tomorrow night. I have repeatedly told you that I must return to the Father. Now has my hour come, but it was not required that one of you should betray me into the hands of my enemies.”

179:4.2 (1940.4) When the twelve heard this, having already been robbed of much of their self-assertiveness and self-confidence by the parable of the feet washing and the Master's subsequent discourse, they began to look at one another while in disconcerted tones they hesitatingly inquired, “Is it I?” And when they had all so inquired, Jesus said: “While it is necessary that I go to the Father, it was not required that one of you should become a traitor to fulfill the Father's will. This is the coming to fruit of the concealed evil in the heart of one who failed to love the truth with his whole soul. How deceitful is the intellectual pride that precedes the spiritual downfall! My friend of many years, who even now eats my bread, will be willing to betray me, even as he now dips his hand with me in the dish.”

179:4.3 (1940.5) And when Jesus had thus spoken, they all began again to ask, “Is it I?” And as Judas,

"그게 저입니까?"라고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主)의 왼쪽에 앉아있는 유다도 따라서 다시 물었다. "그게 저입니까?" 예수는 나물 담긴 접시에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유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예수의 오른 편에 기대고 있던 요한은 더욱 가까이 기대면서 주(主)께 물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의 믿음을 믿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그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며, 내가 적신 빵을 그에게도 주었다." 그러나 주인이 적신 빵을 왼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主)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치 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과 연관된 주(主)의 말씀들의 의미를 따끔하게 의식하였으며, 자기가 배반자라는 사실을 그의 형제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베드로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였으며, 식탁 위로 몸을 기울여가며, 요한에게 다그쳐 물었다. "그게 누구인지 주(主)께 물으라, 만일 내게 말씀하였다면 누가 배반자인지 내게 말하라."

예수는 그들의 속삭이는 말들을 그치게 하면서 말했다: "이러한 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이 시간까지도 진리의 힘이 악의 속임을 이길까 바랐지만, 진리에 대한 진지한 사랑에서의 신앙이 없이는 그러한 승리는 얻지 못한다. 이번, 우리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들 일을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 슬픔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너희가 힘을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는 유다 쪽으로 기대시면서 말했다: "내가 하려고 결정한 것을 행하라,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은 유다는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을 떠났으며,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본 다른 사도들은 그가 아직도 돈주머니를 지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또는 주(主)가 시키시는 다른 용무를 위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이제 유다가 배반자가 되려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열두 명으로 시작했고—지금은 열 하나를 가졌다. 그가 처음으로 뽑은 사도들은 여섯 명이었으며, 유다가 첫 번째 선택으로 임명된 자들 중의 하나였지만, 주(主)는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도, 그를 내내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의 평

sitting on the left of his Master, again asked, "Is it I?" Jesus, dipping the bread in the dish of herbs, handed it to Judas, saying, "You have said." But the others did not hear Jesus speak to Judas. John, who reclined on Jesus' right hand, leaned over and asked the Master: "Who is it? We should know who it is that has proved untrue to his trust." Jesus answered: "Already have I told you, even he to whom I gave the sop." But it was so natural for the host to give a sop to the one who sat next to him on the left that none of them took notice of this, even though the Master had so plainly spoken. But Judas was painfully conscious of the meaning of the Master's words associated with his act, and he became fearful lest his brethren were likewise now aware that he was the betrayer.

179:4.4 (1941.1) Peter was highly excited by what had been said, and leaning forward over the table, he addressed John, "Ask him who it is, or if he has told you, tell me who is the betrayer."

179:4.5 (1941.2) Jesus brought their whisperings to an end by saying: "I sorrow that this evil should have come to pass and hoped even up to this hour that the power of truth might triumph over the deceptions of evil, but such victories are not won without the faith of the sincere love of truth. I would not have told you these things at this, our last supper, but I desire to warn you of these sorrows and so prepare you for what is now upon us. I have told you of this because I desire that you should recall, after I have gone, that I knew about all these evil plottings, and that I forewarned you of my betrayal. And I do all this only that you may be strengthened for the temptations and trials which are just ahead."

179:4.6 (1941.3) When Jesus had thus spoken, leaning over toward Judas, he said: "What you have decided to do, do quickly." And when Judas heard these words, he arose from the table and hastily left the room, going out into the night to do what he had set his mind to accomplish. When the other apostles saw Judas hasten off after Jesus had spoken to him, they thought he had gone to procure something additional for the supper or to do some other errand for the Master since they supposed he still carried the bag.

179:4.7 (1941.4) Jesus now knew that nothing could be done to keep Judas from turning traitor. He started with twelve — now he had eleven. He chose six of these apostles, and though Judas was among those nominated by his first-chosen apostles, still the Master accepted him and had, up to this very hour, done everything possible to

화와 구원을 위해 일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를 정화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수는 이 만찬에서 부드러운 에피소드들과 온화한 접촉으로 저버리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재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친절한 영으로 전달해도, 사랑이 일단 실제로 죽어버리면, 훈계는 대개 미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사악한 결심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구체적 투사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불을 땀길 뿐이다.

제 5 장. 기념 만찬을 확립함

그들이 “축복의 잔”인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예수께로 가져오자, 의자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잔을 잡으시고 축복하며 말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도록 하라.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섭리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신성한 진리의 영이 증여되고 그리고 사명활동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 모두는 심오한 존경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일상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옛 유월절은 그들 조상이 민족적인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개별존재의 자유를 창발 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주(主)는 이제, 노예가 된 개별적인 창발을 형식주의와 이기주의의 사슬로부터, 살아 계신 하느님의 해방된 신앙의 아들의 형제신분과 동료 관계에서의 영적 환희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섭리시대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기념 만찬을 제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 새로운 기념의 잔을 다 마셨을 때, 주(主)는 빵을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둘러싸고 지시하며 말했다: “이 기념하는 빵을 가져다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빵임을 말해왔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하나의 선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진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 안에서 계시되었듯이, 참으로 생명의 빵이다.” 그들이 기념의 빵,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상징을 나누어 먹고 나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 기념 만찬을 제정하면서, 주(主)는 늘 하던 대로 비유와 상징에 의존하였다. 그가 상징들을 이용한 것은, 그의 후계자들이 정교한 해석을 덧붙이고 자신의 말들에 대해 확정된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위대

sanctify and save him, even as he had wrought for the peace and salvation of the others.

179:4.8 (1941.5) This supper, with its tender episodes and softening touches, was Jesus' last appeal to the deserting Judas, but it was of no avail. Warning, even when administered in the most tactful manner and conveyed in the most kindly spirit, as a rule, only intensifies hatred and fires the evil determination to carry out to the full one's own selfish projects, when love is once really dead.

5. ESTABLISHING THE REMEMBRANCE

SUPPER

179:5.1 (1941.6) As they brought Jesus the third cup of wine, the “cup of blessing,” he arose from the couch and, taking the cup in his hands, blessed it, saying: “Take this cup, all of you, and drink of it. This shall be the cup of my remembrance. This is the cup of the blessing of a new dispensation of grace and truth. This shall be to you the emblem of the bestowal and ministry of the divine Spirit of Truth. And I will not again drink this cup with you until I drink in new form with you in the Father's eternal kingdom.”

179:5.2 (1942.1) The apostles all sensed that something out of the ordinary was transpiring as they drank of this cup of blessing in profound reverence and perfect silence. The old Passover commemorated the emergence of their fathers from a state of racial slavery into individual freedom; now the Master was instituting a new remembrance supper as a symbol of the new dispensation wherein the enslaved individual emerges from the bondage of ceremonialism and selfishness into the spiritual joy of the brotherhood and fellowship of the liberated faith sons of the living God.

179:5.3 (1942.2) When they had finished drinking this new cup of remembrance, the Master took up the bread and, after giving thanks, broke it in pieces and, directing them to pass it around, said: “Take this bread of remembrance and eat it. I have told you that I am the bread of life. And this bread of life is the united life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one gift. The word of the Father, as revealed in the Son, is indeed the bread of life.” When they had partaken of the bread of remembrance, the symbol of the living word of truth incarnated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they all sat down.

179:5.4 (1942.3) In instituting this remembrance supper, the Master, as was always his habit, resorted to parables and symbols. He employed symbols because he wanted to teach certain great spiritual truths in such a manner as to make it

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뒤 잇는 세대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결정화하고 그리고 전통과 독단론의 죽어있는 사슬로서 자신의 영적 의미가 묶이는 일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의 전 일생 사명활동을 통하여 유일한 의식(儀式), 즉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는 몸소 정교한 정의(定意)를 밝히기보다는 자신의 의미들을 제시하려고 고심을 쏟았다. 그는 정교한 형식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통에 대한 개별적인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속박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상상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인간의 혼을,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 해방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의 날개 위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다.

새로운 기념 성찬을 그렇게 제정한 주(主)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나온 여러 세기 동안, 육신으로 그 마지막 밤에 그가 제시한 단순한 영적 상징성 안에서 그가 뚜렷하게 밝힌 소망을, 정교한 해석으로, 그리고 거의 수학적 정교함을 지닌 굳어진 공식에 대한 종속으로 몰락시켜 효과적으로 좌절되게 하고 말았다. 예수의 가르침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 보다 더 전통-표준화된 것은 없다.

이 기념 만찬이 . 아들-을-믿는 그리고 하느님-을-아는 사람들로 함께 나누어 질 때, 신성한 현존의 의미에 대한 사람의 그 어떤 미숙한 오해도, 그 상징성과 연관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주(主)는 실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믿는 자와 미가엘의 상징적인 만남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을-의식하게 되면, 아들은 실제적으로 현존하며, 그의 영은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과 형제우애를 나눈다.

그들이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는 계속하여 말했다; “너희가 이 일들을 할 때,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나의 일생을 회고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살며 너희를 통하여 계속 봉사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향유하라. 너희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형제처럼 되어야 한다. 많은 신자들 무리를 받아들이л 만큼 왕국이 확장되어도, 너희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우선권을 추구하거나 위대함에 대한 다툼을 마찬가지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막강한 행사는 한 친구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만찬이나 건물 어느 부분에도 거룩한 형식이나 예식적인 헌납은 아무 것도 없었다. 기념 만찬은 성직자에 의한 비준이 없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기념 만찬 제정을 그렇게 마친 예수는 사도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먼저 육체 속에서 살았던 나의 일생을 돌

difficult for his successors to attach precise interpretations and definite meanings to his words. In this way he sought to prevent successive generations from crystallizing his teaching and binding down his spiritual meanings by the dead chains of tradition and dogma. In the establishment of the only ceremony or sacrament associated with his whole life mission, Jesus took great pains to *suggest* his meanings rather than to commit himself to *precise definitions*. He did not wish to destroy the individual's concept of divine communion by establishing a precise form; neither did he desire to limit the believer's spiritual imagination by formally cramping it. He rather sought to set man's reborn soul free upon the joyous wings of a new and living spiritual liberty.

179:5.5 (1942.4) Notwithstanding the Master's effort thus to establish this new sacrament of the remembrance, those who followed after him in the intervening centuries saw to it that his express desire was effectively thwarted in that his simple spiritual symbolism of that last night in the flesh has been reduced to precise interpretations and subjected to the almost mathematical precision of a set formula. Of all Jesus' teachings none have become more tradition-standardized.

179:5.6 (1942.5) This supper of remembrance, when it is partaken of by those who are Son-believing and God-knowing, does not need to have associated with its symbolism any of man's puerile mis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divine presence, for upon all such occasions the Master is *really present*. The remembrance supper is the believer's symbolic rendezvous with Michael. When you become thus spirit-conscious, the Son is actually present, and his spirit fraternizes with the indwelling fragment of his Father.

179:5.7 (1942.6) After they had engaged in meditation for a few moments, Jesus continued speaking: “When you do these things, recall the life I have lived on earth among you and rejoice that I am to continue to live on earth with you and to serve through you. As individuals, contend not among yourselves as to who shall be greatest. Be you all as brethren. And when the kingdom grows to embrace large groups of believers, likewise should you refrain from contending for greatness or seeking preferment between such groups.”

179:5.8 (1943.1) And this mighty occasion took place in the upper chamber of a friend. There was nothing of sacred form or of ceremonial consecration about either the supper or the building. The remembrance supper was established without ecclesiastical sanction.

179:5.9 (1943.2) When Jesus had thus established the supper of the remembrance, he said to the eleven: “And as often as you do this, do it in remembrance of me. And when you do remember me, first look

이켜 보고, 내가 한 때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회상한 후에, 너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식별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유월절 기념, 증여되었던 내 일생,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모든 육체에게 나의 진리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을 다함께 부름으로써, 새로운 기념 만찬의 창시와 연결되는, 오래된 그러나 피 흘림이 없는 유월절 축하를 끝냈다.

back upon my life in the flesh, recall that I was once with you, and then, by faith, discern that you shall all sometime sup with me in the Father's eternal kingdom. This is the new Passover which I leave with you, even the memory of my bestowal life, the word of eternal truth; and of my love for you, the outpouring of my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179:5.10 (1943.3) And they ended this celebration of the old but bloodless Passover in connec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new supper of the remembrance, by singing, all together, the one hundred and eighteenth Psalm.

제 180 편 고별 강연

⇨ 179

유랜시아 책

18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0 편 고별 강연

섹션

소개

제 1 장. 새 계명

제 2 장. 포도나무와 가지들

제 3 장. 세상의 적대감

제 4 장. 약속된 조력자

제 5 장. 진리의 영

제 6 장. 떠나야 할 필요성

PAPER 180

THE FAREWELL DISCOURS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New Commandment

2. The Vine and the Branches

3. Enmity of the World

4. The Promised Helper

5. The Spirit of Truth

6. The Necessity for Leaving

소개

최후의 만찬을 마치면서 시편을 찬송한 후에, 사도들은 예수가 즉시 야영지로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더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주(主)는 말했다:

“내가 돈주머니나 전대도 없이 너희를 내보내면서 심지어는 여분의 옷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던 때를 너희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고난의 시대가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군중들의 선한 뜻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지참하고 다니게 하라.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너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지만, 그것은 얼마 동안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이르렀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잠시 동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곧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만,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일을 다 완결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의 일을 다 완결한 후에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INTRODUCTION

180:0.1 (1944.1) AFTER singing the Psalm at the conclusion of the Last Supper, the apostles thought that Jesus intended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camp, but he indicated that they should sit down. Said the Master:

180:0.2 (1944.2) “You well remember when I sent you forth without purse or wallet and even advised that you take with you no extra clothes. And you will all recall that you lacked nothing. But now have you come upon troublous times. No longer can you depend upon the good will of the multitudes. Henceforth, he who has a purse, let him take it with him.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to proclaim this gospel, make such provision for your support as seems best. I have come to bring peace, but it will not appear for a time.

180:0.3 (1944.3) “The time has now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and the Father shall be glorified in me. My friends, I am to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Soon you will seek for me, but you will not find me, for I am going to a place to which you cannot, at this time, come. But when you have finished your work on earth as I have now finished mine, you shall then come to me even as I now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겠고,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국으로 너희가 올라올 때, 너희 모두는 다가오는 시대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 1 장. 새 계명

잠시 동안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가 일어나서 말했다;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를 너희에게 보여주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기를 갈망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려하므로 그것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한 계명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들의 편에서의 그러한 진지한 헌신에도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 형제신분의 왕국 안에서 더욱 큰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 혼에게 어떤 새로운 짐도 더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고, 너희 가슴이 친구들에게 애정을 쏟는 환희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체험하게 한다. 나는, 비록 흘러나오는 슬픔을 참고 있지만, 너희와 너희 친구들에게 나의 애정을 줌으로써, 최극 기쁨을 체험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청하였을 때, 나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애정을 너희 앞에 높이 들어 나타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친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꺼이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계속하여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주(主)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만약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단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너희 친구들에게 사랑 넘치는 봉사를 통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를 사도로 임명하였다.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너희가 오직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기쁨의 신성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prepare to go to my Father. In just a short time I am going to leave you, you will see me no more on earth, but you shall all see me in the age to come when you ascend to the kingdom which my Father has given to me.”

1. THE NEW COMMANDMENT

180:1.1 (1944.4) After a few moments of informal conversation, Jesus stood up and said: “When I enacted for you a parable indicating how you should be willing to serve one another, I said that I desired to give you a new commandment; and I would do this now as I am about to leave you. You well know the commandment which directs that you love one another; that you love your neighbor even as yourself. But I am not wholly satisfied with even that sincere devotion on the part of my children. I would have you perform still greater acts of love in the kingdom of the believing brotherhood. And so I give you this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And by this will all men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thus love one another.

180:1.2 (1944.5) “When I give you this new commandment, I do not place any new burden upon your souls; rather do I bring you new joy and make it possible for you to experience new pleasure in knowing the delights of the bestowal of your heart’s affection upon your fellow men. I am about to experience the supreme joy, even though enduring outward sorrow, in the bestowal of my affection upon you and your fellow mortals.

180:1.3 (1944.6) “When I invite you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I hold up before you the supreme measure of true affection, for greater love can no man have than this: that he will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And you are my friends; you will continue to be my friends if you are but willing to do what I have taught you. You have called me Master, but I do not call you servants. If you will only love one another as I am loving you, you shall be my friends, and I will ever speak to you of that which the Father reveals to me.

180:1.4 (1945.1) “You have not merely chosen me, but I have also chosen you, and I have ordained you to go forth into the world to yield the fruit of loving service to your fellows even as I have lived among you and revealed the Father to you. The Father and I will both work with you, and you shall experience the divine fullness of joy if you will only obey my command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만일 너희가 주(主)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희가 그의 봉사를 나누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랑의 체험이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옛 세상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명심하라: 예수가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충성이다. 희생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사랑 넘치는 봉사를 최극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 애정, 전심어린 애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의무라는 관념은 너희가 하인의-마음에 있음을 뜻하며 그리하여 너희가 친구로서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강력한 전율이 없다. 우정의 충동은 의무에서 나오는 모든 신념들을 초월하며, 그리고 친구를 위한 친구의 봉사는 결코 희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주(主)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가르치셨다. 주(主)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으며, 그리고 지금 떠나가기 전,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신다.

180:1.5 (1945.2) If you would share the Master's joy, you must share his love. And to share his love means that you have shared his service. Such an experience of love does not deliver you from the difficulties of this world; it does not create a new world, but it most certainly does make the old world new.

180:1.6 (1945.3) Keep in mind: It is loyalty, not sacrifice, that Jesus demands. The consciousness of sacrifice implies the absence of that wholehearted affection which would have made such a loving service a supreme joy. The idea of *duty* signifies that you are servant-minded and hence are missing the mighty thrill of doing your service as a friend and for a friend. The impulse of friendship transcends all convictions of duty, and the service of a friend for a friend can never be called a sacrifice. The Master has taught the apostles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He has called them brethren, and now, before he leaves, he calls them his friends.

제 2 장. 포도나무와 가지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다시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그 가지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직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될 것을 내게 원한다. 오직 열매 풍성함을 증가시키려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이다. 내게서 나온 가지들 중에서 아무 열매도 없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은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야기해 왔던 말을 통하여 이미 깨끗하지만, 그러나 깨끗한 것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죽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봉사에서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맺을 수 없다. 나는 실제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살아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며, 이 영적 수확이 거두어지는 최극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와 이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다면,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나의 영이 네게 주입되어 그로서 너희가 무엇이든기간에 내 영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청원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많은 살아있는 가지들이 있고, 모든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맺는 가지들—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2. THE VINE AND THE BRANCHES

180:2.1 (1945.4) Then Jesus stood up again and continued teaching his apostl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husbandman.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And the Father requires of me only that you shall bear much fruit. The vine is pruned only to increase the fruitfulness of its branches. Every branch coming out of me which bears no fruit, the Father will take away. Every branch which bears fruit, the Father will cleanse that it may bear more fruit. Already are you clean through the word I have spoken, but you must continue to be clean. You must abide in me, and I in you; the branch will die if it is separated from the vine.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except it abide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yield the fruits of loving service except you abide in me. Remember: I am the real vine, and you are the living branches. He who live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of the spirit and experience the supreme joy of yielding this spiritual harvest. If you will maintain this living spiritual connection with me, you will bear abundant fruit.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live in you, you will be able to commune freely with me, and then can my living spirit so infuse you that you may ask whatsoever my spirit wills and do all this with the assurance that the Father will grant us our petition. Herein is the Father glorified: that the vine has many living branches, and that every branch bears much fruit. And when the world sees these fruit-bearing branches — my friends wh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them —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truly my disciples.

나의 친구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온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해 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조상들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솟아오르는 줄기”일 것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기념하여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포도와 그것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지의 큰 상징이 장식되어 있었다. 주(主)가 이 날 밤 그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주(主)의 가르침들이 잘못 해석되면서 크게 슬픈 일이 나중에 발생되었다. 주(主)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되고 이어서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이러한 가르침들에 관한 어려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만들어질 때, 신자들은 결국에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일종의 최극의 마술이라도 되는 듯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직한 사람들이 여러 세기 동안 이 걸림돌에 걸려서 그들의 신앙이 난파되는 일을 계속해 왔다. 기도가 너희의 길을 얻으려는 진행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진행 순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너희의 뜻이 그의 뜻과 참으로 일치할 때, 너희는 합쳐진 뜻에 의해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응답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합된 뜻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지들 속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흐르는 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신성과 인간성 사이에 이 살아있는 연결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만일 인간성이 지각없이 그리고 모르는 체하며 이기적 편안함과 그리고 헛된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직 하나의 신성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곧 살아있는 가지의 줄기에서 영의 열매를 더 많이 더욱 증가하여 맺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청원에 오직 하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곧 포도가 더욱 증가되어 맺는 것이다. 사실상, 가지는 오로지 열매를 맺는 것, 포도를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직 영의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곧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나아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단련의 손이 포도나무에 가해지는 것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지들

180:2.2 (1945.5)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Live in my love even as I live in the Father’s love. If you do as I have taught you, you shall abide in my love even as I have kept the Father’s word and evermore abide in his love.”

180:2.3 (1946.1) The Jews had long taught that the Messiah would be “a stem arising out of the vine” of David’s ancestors, and in commemoration of this olden teaching a large emblem of the grape and its attached vine decorated the entrance to Herod’s temple. The apostles all recalled these things while the Master talked to them this night in the upper chamber.

180:2.4 (1946.2) But great sorrow later attended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inferences regarding prayer. There would have been little difficulty about these teachings if his exact words had been remembered and subsequently truthfully recorded. But as the record was made, believers eventually regarded prayer in Jesus’ name as a sort of supreme magic, thinking that they would receive from the Father anything they asked for. For centuries honest souls have continued to wreck their faith against this stumbling block. How long will it take the world of believers to understand that prayer is not a process of getting your way but rather a program of taking God’s way, an experience of learning how to recognize and execute the Father’s will? It is entirely true that, when your will has been truly aligned with his, you can ask anything conceived by that will-union, and it will be granted. And such a will-union is effected by and through Jesus even as the life of the vine flows into and through the living branches.

180:2.5 (1946.3) When there exists this living connection between divinity and humanity, if humanity should thoughtlessly and ignorantly pray for selfish ease and vainglorious accomplishments, there could be only one divine answer: more and increased bearing of the fruits of the spirit on the stems of the living branches. When the branch of the vine is alive, there can be only one answer to all its petitions: increased grape bearing. In fact, the branch exists only for, and can do nothing except, fruit bearing, yielding grapes. So does the true believer exist only for the purpose of bearing the fruits of the spirit: to love man as he himself has been loved by God —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even as Jesus has loved us.

180:2.6 (1946.4) And when the Father’s hand of discipline is laid upon the vine, it is done in love, in order that the branches may bear much fruit. And

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현명한 농부는 오직 죽어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만 잘라버린다.

예수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조차도, 기도가 영이-지배하는 왕국 안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자들의 기능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끄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 3 장. 세상의 적대감

열 한 사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강연에 대한 토의를 끝내기도 전에 주(主)는 자기 때가 곧 이르게 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좀 더 말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치시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연약한 가슴을 가진 신자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왕국의 적들에게 가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나를 미워했었다는 것을 회상해야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 삶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선택받은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의 영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항상 기억해라: 하인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또한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렸다면, 너희 말도 또한 그들에게 거슬릴 것이다. 그들이 나와 또한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시련을 견디어 낼 때, 나도 그렇게 하늘왕국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 고통 받았음을 회상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공격할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빛에 대해 무지하지만,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선고판결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생소한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빛을 알면서 감히 그것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은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할 말이 없다.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 받아들이다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그 빛이, 고의로 거부되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너희는 죄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미워하다니 내가 저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단 말이냐? 이 세상에서의 교제와 하늘에서의 구원을 그들에게 제안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성서에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만을 외롭게 이 세상에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영 조력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무

a wise husbandman cuts away only the dead and fruitless branches.

180:2.7 (1946.5) Jesus had great difficulty in leading even his apostles to recognize that prayer is a function of spirit-born believers in the spirit-dominated kingdom.

3. ENMITY OF THE WORLD

180:3.1 (1946.6) The eleven had scarcely ceased their discussions of the discourse on the vine and the branches when the Master, indicating that he was desirous of speaking to them further and knowing that his time was short, said: “When I have left you, be not discouraged by the enmity of the world. Be not downcast even when fainthearted believers turn against you and join hands with the enemies of the kingdom. If the world shall hate you, you should recall that it hated me even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the wor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the world refuses to love you. You are in this world, but your lives are not to be worldlike.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o represent the spirit of another world even to this world from which you have been chosen. But always remember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dare to persecute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my words offend the unbelievers, so also will your words offend the ungodly. And all of this will they do to you because they believe not in me nor in Him who sent me; so will you suffer many things for the sake of my gospel. But when you endure these tribulations, you should recall that I also suffered before you for the sake of this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180:3.2 (1947.1) “Many of those who will assail you are ignorant of the light of heaven, but this is not true of some who now persecute us. If we had not taught them the truth, they might do many strange things without falling under condemnation, but now, since they have known the light and presumed to reject it,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attitude.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It cannot be otherwise; the light which would save you if accepted can only condemn you if it is knowingly rejected. And what have I done to these men that they should hate me with such a terrible hatred? Nothing, save to offer them fellowship on earth and salvation in heaven. But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the saying: ‘And they hated me without a cause’?

180:3.3 (1947.2) “But I will not leave you alone in the world. Very soon, after I have gone, I will send you a spirit helper. You shall have with you one who will

리들 속에서 내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에게 계속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말라.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 것에 계속 머무라.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로부터 멀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일 이것이 참말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그 장소에 대하여 거듭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빛의 세계들, 장차 너희도 올라오게 될, 아버지의 하늘 안에 있는 장소들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들 장소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이제 위에 있는 구체들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로 돌아가야만 할 시간이 왔다.

“만일 내가 그렇게 너희에 앞서 아버지의 하늘왕국 안으로 가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느님의 자녀 된 필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틀림없이 부르러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지만, 영으로 너희에게 제시되어 있을 것이며, 내가 이제 막 더욱 큰 자신의 우주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로 가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우주 안에 있는 내게로 올라왔을 때, 너희는 결국에는 개인으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참되며 영속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비록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가 자리에 앉으시자, 도마가 일어나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는 대답했다; “도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나를 발견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았고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그로써 너희는 나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도들 특히 빌립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는 나다니엘과 몇 마디 말을 한 후에 일어나서 말했다; “주(主)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빌립이 말을 마치자 예수는 말했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하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하였고 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

take my place among you, one who will continue to teach you the way of truth, who will even comfort you.

180:3.4 (1947.3)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continue to believe also in me. Even though I must leave you, I will not be far from you. I have already told you that in my Father’s universe there are many tarrying-places. If this were not true, I would not have repeatedly told you about them. I am going to return to these worlds of light, stations in the Father’s heaven to which you shall sometime ascend. From these places I came into this world, and the hour is now at hand when I must return to my Father’s work in the spheres on high.

180:3.5 (1947.4) “If I thus go before you into the Father’s heavenly kingdom, so will I surely send for you that you may be with me in the places that were prepared for the mortal sons of God before this world was. Even though I must leave you, I will be present with you in spirit, and eventually you shall be with me in person when you have ascended to me in my universe even as I am about to ascend to my Father in his greater universe. And what I have told you is true and everlasting, even though you may not fully comprehend it. I go to the Father, and though you cannot now follow me, you shall certainly follow me in the ages to come.”

180:3.6 (1947.5) When Jesus sat down, Thomas arose and said: “Master,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of course we do not know the way. But we will follow you this very night if you will show us the way.”

180:3.7 (1947.6) When Jesus heard Thomas, he answered: “Thoma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go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All who find the Father, first find me. If you know me, you know the way to the Father. And you do know me, for you have lived with me and you now see me.”

180:3.8 (1947.7) But this teaching was too deep for many of the apostles, especially for Philip, who, after speaking a few words with Nathaniel, arose and said: “Master, show us the Father, and everything you have said will be made plain.”

180:3.9 (1947.8) And when Philip had spoken, Jesus said: “Philip,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do not even now know me? Again do I declare: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then say, Show us the Father?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Have I not taught you that the words which I speak are not my words but the words of the Father? I speak for the Father and not of myself. I am in this world to do the Father’s will, and that I

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나는 그렇게 행하였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내 말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바로 그 일생을 보고—행한 일을 보고—나를 믿으라.”

주(主)가 기운을 차리려고 물을 마시러 옆으로 가자, 열 한 사도들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열띤 토론하였으며, 예수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을 때, 베드로는 긴 연설을 입 밖으로 내놓으려는 참이었다.

제 4 장. 약속된 조력자

예수는 계속하여 가르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아버지께서 충분히 승인한 후에, 그리고 나 자신의 권역에 대한 최종 주권을 받은 후에, 나는 나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다른 선생을 보내주는 것이 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진리의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선물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이 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기쁘게 그리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가 올 때 너희는 이 영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 선물을 너희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아무 도움과 인도함이 없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오직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뿐만 아니라 나의 현존을 원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각자와 동시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너희를 떠나고 그로서 더욱 좋게 그리고 더욱 충만하게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몇 시간 후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새로운 선생,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가슴속으로 여전히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직접 너희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에는 너희 안에 살 것이다; 내가 영의 왕국 속에서 너희의 개인적 체험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그의 말씀을 지켰으며;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의 영을 내게 주신 것같이, 나도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여할 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안내하고 위로할 것이며 결국

have done. My Father abides in me and works through me. Believe me when I say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that I am in the Father, or else believe me for the sake of the very life I have lived — for the work's sake.”

180:3.10 (1948.1) As the Master went aside to refresh himself with water, the eleven engaged in a spirited discussion of these teachings, and Peter was beginning to deliver himself of an extended speech when Jesus returned and beckoned them to be seated.

4. THE PROMISED HELPER

180:4.1 (1948.2) Jesus continued to teach, saying: “When I have gone to the Father, and after he has fully accepted the work I have done for you on earth, and after I have received the final sovereignty of my own domain, I shall say to my Father: Having left my children alone on earth, it is in accordance with my promise to send them another teacher. And when the Father shall approve, I will pour out the Spirit of Truth upon all flesh. Already is my Father's spirit in your hearts, and when this day shall come, you will also have me with you even as you now have the Father. This new gift is the spirit of living truth. The unbelievers will not at first listen to the teachings of this spirit, but the sons of light will all receive him gladly and with a whole heart. And you shall know this spirit when he comes even as you have known me, and you will receive this gift in your hearts, and he will abide with you. You thus perceive that I am not going to leave you without help and guidance. I will not leave you desolate. Today I can be with you only in person. In the times to come I will be with you and all other men who desire my presence, wherever you may be, and with each of you at the same time. Do you not discern that it is better for me to go away; that I leave you in the flesh so that I may the better and the more fully be with you in the spirit?

180:4.2 (1948.3) “In just a few hours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continue to know me in your hearts even until I send you this new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s I have lived with you in person, then shall I live in you; I shall be one with your personal experience in the spirit kingdom. And when this has come to pass, you shall surely know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at, while your life is hid with the Father in me, I am also in you. I have loved the Father and have kept his word; you have loved me, and you will keep my word. As my Father has given me of his spirit, so will I give you of my spirit. And this Spirit of Truth which I will bestow upon you shall guide and comfort you and shall eventually lead you into all truth.

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 날이 오면, 너희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내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이들 선물은 아버지와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한 개인, 사람의 아들로써 일하였던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일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인 영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主)가 잠시 동안 말씀을 멈추시자 유다 알페오는 이 때 자신과 그의 형제가 예수께 공개적으로 일찍이 말한, 몇 안 되는 질문중의 하나를 대담하게 던졌다. 유다가 말했다; “주(主)여, 당신은 항상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영으로 하신다는 것을 제쳐두고,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만일 세상이 당신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 관하여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예수는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다; “애들아, 나는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는 나를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 물질적 육체를 제외하고는 나와 똑같은 것이다. 새로 오는 이 선생이 너희 각자와 같이 가슴속에서 살게 될 진리의 영이며, 그로서 빛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 각자의 혼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껏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체험으로 그러한 실제 사랑을 만들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살 수 있다.”

유다 알페오는 주(主)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선생에 대한 약속을 파악하였으며, 자신의 질문이 만족한 답변을 얻었다는 것을 안드레의 얼굴 표정에서 눈치 챘다.

제 5 장. 진리의 영

예수가 신자들의 가슴속으로 보내시고 모든 육체에게 부여주시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조력자는 진리의 영이다. 이 신성한 자질은 진리의 서신이나 율법이 아니고, 진리의 형식이나 표현으로서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선생은 진리에 대한 신념, 실제 영적 차원에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한 인식이요 확신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선생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진리, 확대되고, 펼쳐지는 그리고 적응성이 있는 진리이다.

신성한 진리는 영으로-식별 되는 것이며 살아

180:4.3 (1948.4) “I am telling you these things while I am still with you that you may be the better prepared to endure those trials which are even now right upon us. And when this new day comes, you will be indwelt by the Son as well as by the Father. And these gifts of heaven will ever work the one with the other even as the Father and I have wrought on earth and before your very eyes as one person, the Son of Man. And this spirit friend will bring to your remembrance everything I have taught you.”

180:4.4 (1948.5) As the Master paused for a moment, Judas Alpheus made bold to ask one of the few questions which either he or his brother ever addressed to Jesus in public. Said Judas: “Master, you have always lived among us as a friend; how shall we know you when you no longer manifest yourself to us save by this spirit? If the world sees you not, how shall we be certain about you? How will you show yourself to us?”

180:4.5 (1949.1) Jesus looked down upon them all, smiled, and said: “My little children, I am going away, going back to my Father. In a little while you will not see me as you do here, as flesh and blood. In a very short time I am going to send you my spirit, just like me except for this material body. This new teacher is the Spirit of Truth who will live with each one of you, in your hearts, and so will all the children of light be made one and be drawn toward one another. And in this very manner will my Father and I be able to live in the souls of each one of you and also in the hearts of all other men who love us and make that love real in their experiences by loving one another, even as I am now loving you.”

180:4.6 (1949.2) Judas Alpheus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the Master said, but he grasped the promise of the new teacher, and from the expression on Andrew's face, he perceived that his question had been satisfactorily answered.

5. THE SPIRIT OF TRUTH

180:5.1 (1949.3) The new helper which Jesus promised to send into the hearts of believers, to pour out upon all flesh, is the *Spirit of Truth*. This divine endowment is not the letter or law of truth, neither is it to function as the form or expression of truth. The new teacher is the *conviction of truth*, the consciousness and assurance of true meanings on real spirit levels. And this new teacher is the spirit of living and growing truth, expanding, unfolding, and adaptative truth.

180:5.2 (1949.4) Divine truth is a spirit-discerned and

있는 실체이다. 진리는 신성의 실현과 그리고 하느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그러한 높은 영적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 너희는 혼 속에서 진리가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그 깨우침이 주는 해방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인간 행위의 공식, 규범, 교리 또는 지적 원형틀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너희가 신성한 진리를 인간적 정형화로 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은 급속히 죽는다. 감금된 진리를 죽은 뒤에 구출하려는 것은, 기껏해야 지능화작용으로 영화롭게 된 지혜가, 특이한 형태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결국 생겨날 수 있을 뿐이다. 정적인 진리는 죽어있는 진리이다, 그리고 죽은 진리는 오직 이론으로 유지될 수 있다. 살아있고 살아나게 하는 진리는 역동적이며,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인간 마음속에서 체험적 실존을 향유할 수 있다.

지능은 조화우주 마음의 현존에 의해 비추어지는 물질적 실존에서 성장하며 나온다. 지혜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지혜 보조자의 우주 자질의 현존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식에 대한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리는 오직 우주 인식의 초(超)물질 차원에서 기능하는 존재, 그리고 진리의 실현 후에, 활성화된 영이 그들의 혼속에 거하고 군림하도록 허락하는 존재인, 그러한 영이-수여된 존재에게만 체험되는 영적 실체 가치이다.

우주 통찰력의 참된 자녀는 모든 지혜로운 말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을 찾는다. 하느님-아는 모든 개별존재는 신성한 달성의 살아있는-진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꾸준히 높인다;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혼은 항상 살아있는 진리를 지혜의 죽어있는 차원으로 그리고 단지 드높여진 지식의 권역으로 끌어 내린다.

진리의 영에서의 초인간적 통찰력을 벗어 버렸을 때, 황금률은 높은 윤리적 행위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황금률이 글자 그대로 해석되면, 친구들에게 크나큰 반감을 주는 도구가 된다. 지혜의 황금률을 영적으로 식별하지 못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충분하고 솔직한 진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모두 솔직하게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내야만 할 것이다. 황금률에 대한 이러한 비(非)영적 해석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끝없는 슬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황금률이 마치 인간 형제우에 관계에서의 순수하게 지적인 확인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해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개인성의 부드러운 느낌에 대한 감정적 충족으로서, 인간관계에서의 이 표현을 체험한다.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이 황금률을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재는 잣대, 사회 행위의 표준으로 여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구 안에, 모든 형제우에에서의 관계에 대

living reality. Truth exists only on high spiritual levels of the realization of divinity and the consciousness of communion with God. You can know the truth, and you can live the truth; you can experience the growth of truth in the soul and enjoy the liberty of its enlightenment in the mind, but you cannot imprison truth in formulas, codes, creeds, or intellectual patterns of human conduct. When you undertake the human formulation of divine truth, it speedily dies. The post-mortem salvage of imprisoned truth, even at best, can eventuate only in the realization of a peculiar form of intellectualized glorified wisdom. Static truth is dead truth, and only dead truth can be held as a theory. Living truth is dynamic and can enjoy only an experiential existence in the human mind.

180:5.3 (1949.5) Intelligence grows out of a material existence which is illuminated by the presence of the cosmic mind. Wisdom comprises the consciousness of knowledge elevated to new levels of meaning and activated by the presence of the universe endowment of the adjutant of wisdom. Truth is a spiritual reality value experienced only by spirit-endowed beings who function upon supermaterial levels of universe consciousness, and who, after the realization of truth, permit its spirit of activation to live and reign within their souls.

180:5.4 (1949.6) The true child of universe insight looks for the living Spirit of Truth in every wise saying. The God-knowing individual is constantly elevating wisdom to the living-truth levels of divine attainment; the spiritually unprogressive soul is all the while dragging the living truth down to the dead levels of wisdom and to the domain of mere exalted knowledge.

180:5.5 (1949.7) The golden rule, when divested of the superhuman insight of the Spirit of Truth, becomes nothing more than a rule of high ethical conduct. The golden rule, when literally interpreted, may become the instrument of great offense to one's fellows. Without a spiritual discernment of the golden rule of wisdom you might reason that, since you are desirous that all men speak the full and frank truth of their minds to you, you should therefore fully and frankly speak the full thought of your mind to your fellow beings. Such an un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might result in untold unhappiness and no end of sorrow.

180:5.6 (1950.1) Some persons discern and interpret the golden rule as a purely intellectual affirmation of human fraternity. Others experience this expression of human relationship as an emotional gratification of the tender feelings of the human personality. Another mortal recognizes this same golden rule as the yardstick for measuring all social relations, the standard of social conduct.

하여 도덕적 책무의 가장 높은 개념을 체현시킨, 어느 위대한 도덕 선생이 내린 적극적 훈령으로서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한 도덕적 존재들의 삶 속에서 황금률은 그들의 모든 철학의 지혜로운 핵심이며, 범위가 된다.

하느님을-아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믿음을 지닌 형제신분의 왕국에서, 이 황금률은, 그들이 자신들과 신자의 접촉하는 결과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선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자신들의 동료와 그렇게 관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필사 자녀들이 주(主)의 이 권고명령을 바라보게 만드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해석위에서의 영적 실현의 살아있는 본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나 황금률에 대한 가장 높은 실현과 가장 진실한 해석은, 그러한 신성한 선언의 영구적이고 살아있는 실체에서의 진리의 영에 대한 의식에 있다. 이러한 우주관계의 법칙에서의 참된 조화우주의 의미는 오직 그 자체의 영적 실현 안에서, 아들의 영에 의해서 필사 사람의 혼속에 내주 하는 아버지의 영에게 행위의 법칙을 해석하는 것으로 계시된다. 그리고 영에-인도된 그러한 필사자들이 이 황금률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때, 그들은 우호적인 우주 안에서 시민이 되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영적 실체에 관한 그들의 이상은 예수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자기 동료들을 사랑할 때에만 만족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실체이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주(主)의 가르침과 실천 관행을 너희가 적절하게 납득하기를 소망하기 전에 먼저, 모든 하느님의 아들의 개별적 수용능력과 요구에 맞는 신성한 진리에서의 조화우주 적응성과 살아있는 융통성의 바로 이 똑 같은 철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주(主)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영적 선언이다. 그의 철학에서의 물질적 암시마저도 그러한 것들의 영적 상관관계와 분리되어서는 도움이 되도록 고려될 수 없다. 주(主)의 권고명령에서의 영은 우주에 대한 모든 이기적 반응에 대한 무저항에 있으며, 동시에 참된 영적 가치들;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그리고 영원한 진리—하느님을 아는 것과 점차 그와 같이 되는 것—의 정의로운 차원을 적극적이고 진보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사랑, 사심-없음은 진리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 관계들을 항상 생생하게 재(再)적응하는 해석을 거쳐야만 한다. 사랑은 사랑 받는 개별존재에 대한 가장 높은 조화우주 선의 항상-변하고 확대되는 개념을 그것으로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더 나아가서, 우주의 다른 시민에 대한 영으로-인도된 한 필사자의 사랑에서의 성장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

Still others look upon it as being the positive injunction of a great moral teacher who embodied in this statement the highest concept of moral obligation as regards all fraternal relationships. In the lives of such moral beings the golden rule becomes the wise center and circumference of all their philosophy.

180:5.7 (1950.2) In the kingdom of the believing brotherhood of God-knowing truth lovers, this golden rule takes on living qualities of spiritual realization on those higher levels of interpretation which cause the mortal sons of God to view this injunction of the Master as requiring them so to relate themselves to their fellows that they will receive the highest possible good as a result of the believer's contact with them. This is the essence of true religion: that you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180:5.8 (1950.3) But the highest realization and the truest interpretation of the golden rule consist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pirit of the truth of the enduring and living reality of such a divine declaration. The true cosmic meaning of this rule of universal relationship is revealed only in its spiritual realiz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conduct by the spirit of the Son to the spirit of the Father that indwells the soul of mortal man. And when such spirit-led mortals realize the true meaning of this golden rule, they are filled to overflowing with the assurance of citizenship in a friendly universe, and their ideals of spirit reality are satisfied only when they love their fellows as Jesus loved us all, and that is the reality of the realization of the love of God.

180:5.9 (1950.4) This same philosophy of the living flexibility and cosmic adaptability of divine truth to the individual requirements and capacity of every son of God, must be perceived before you can hope adequately to understand the Master's teaching and practice of nonresistance to evil. The Master's teaching is basically a spiritual pronouncement. Even the material implications of his philosophy cannot be helpfully considered apart from their spiritual correlations. The spirit of the Master's injunction consists in the nonresistance of all selfish reaction to the universe, coupled with the aggressive and progressive attainment of righteous levels of true spirit values: divine beauty, infinite goodness, and eternal truth — to know God and to become increasingly like him.

180:5.10 (1950.5) Love, unselfishness, must undergo a constant and living readaptative interpretation of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leading of the Spirit of Truth. Love must thereby grasp the ever-changing and enlarging concepts of the highest cosmic good of the individual who is loved. And then love goes on to strike this same attitude concerning all other individuals who could possibly

이 있는 모든 다른 개별존재에 관하여, 바로 이 똑같은 태도를 계속 가진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랑의 적응 전체는 제시되어 있는 악의 환경과 신성한 운명의 완성에 대한 영원한 목적의 둘 모두에 비추어서 효과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률이나 무저항에 대한 가르침이 결코 독단론이나 교훈으로 적절하게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그것들은 오직 살아있는 그 자체로써, 한 인간존재와 다른 존재의 사랑하는 접촉을 지도하는 진리의 영의 살아있는 해석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옛 종교와 새 종교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옛 종교는 자아-희생물을 가르쳤고; 새 종교는 오직 자아-잊어버림, 연관된 사회봉사와 우주 이해 속에서의 증진되는 자아-실현을 가르친다. 옛 종교는 공포를 인식함으로서 동기를 일으켰다; 새 왕국 복음은 진리에 대한 신념, 영원한 우주적 진리의 영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경건이나 교리에서의 충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왕국을 믿는 자들의 일생의 체험 속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태어난 아들들의 특징인, 그러한 자발적이고 관대하며 진지한 우정이 빠져있는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전통이나 형식적인 경배의 의례적 체계도 자기 동료에 대한 진정한 연민의 모자람을 보상할 수 없다.

제 6 장. 떠나야 할 필요성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가 주(主)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난 이후에, 그는 고별 강연을 계속하면서 말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너희에게 닥칠 일들에 너희가 미리 대비하여 심각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다만 너희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하건데, 너희를 죽이는 자들은 그들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이들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새 계명을 만일 너희가 지켜왔다면, 그들이 너희를 거부할 때 곧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때가 지금 이른 것같이 너희의 때가 이르게 될 경우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나의 영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대담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였다. 사람의 적대자

be influenced by the growing and living relationship of one spirit-led mortal's love for other citizens of the universe. And this entire living adaptation of love must be effected in the light of both the environment of present evil and the eternal goal of the perfection of divine destiny.

180:5.11 (1950.6) And so must we clearly recognize that neither the golden rule nor the teaching of nonresistance can ever be properly understood as dogmas or precepts. They can only be comprehended by living them, by realizing their meanings in the living interpretation of the Spirit of Truth, who directs the loving contact of one human being with another.

180:5.12 (1951.1) And all this clearly indic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religion and the new. The old religion taught self-sacrifice; the new religion teaches only self-forgetfulness, enhanced self-realization in conjoined social service and universe comprehension. The old religion was motivated by fear-consciousness; the new gospel of the kingdom is dominated by truth-conviction, the spirit of eternal and universal truth. And no amount of piety or creedal loyalty can compensate for the absence in the life experience of kingdom believers of that spontaneous, generous, and sincere friendliness which characterizes the spirit-born sons of the living God. Neither tradition nor a ceremonial system of formal worship can atone for the lack of genuine compassion for one's fellows.

6. THE NECESSITY FOR LEAVING

180:6.1 (1951.2) After Peter, James, John, and Matthew had asked the Master numerous questions, he continued his farewell discourse by saying: “And I am telling you about all this before I leave you in order that you may be so prepared for what is coming upon you that you will not stumble into serious error. The authorities will not be content with merely putting you out of the synagogues; I warn you the hour draws near when they who kill you will think they are doing a service to God. And all of these things they will do to you and to those whom you lead into the kingdom of heaven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Father. They have refused to know the Father by refusing to receive me; and they refuse to receive me when they reject you, provided you have kept my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I am telling you in advance about these things so that, when your hour comes, as mine now has, you may be strengthened in the knowledge that all was known to me, and that my spirit shall be with you in all your suffering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It was for this purpose that I have been talking so plainly to you from the very beginning. I have even warned you that a man's

는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저들이 될 수도 있다고 너희에게 경고까지 하였다. 비록 왕국 복음이 개별 신자의 혼에게 반드시 위대한 평화를 주겠지만, 인류가 전심으로 나의 가르침을 기꺼이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천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라고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그러한 질문을 가슴속으로 하고 있음을 안다. 친구로서 친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제로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새로운 선생이 너희 가슴속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영 선생을 너희 혼 안에 살고 너희 영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도록 보낼 수 있기 전에, 이 필사 몸을 벗고, 높은 곳에서 내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려고 올 때, 그가 죄와 정의(正義)의 차이를 비쳐줄 것이며, 너희가 그것들에 관하여 너희의 가슴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이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우주 안에서 여러 거처를 지나는 동안 결국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영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시했던 것을 너희에게 선언하고, 다가올 것들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영은 나에게서 솟아나고 나의 진리를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권역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선생이 내 것을 취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계시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 때에도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랫동안이 아닐 것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시는 동안, 사도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어도 그것이 오랫동안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과 ‘오랫동안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

예수는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아시고 말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라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너희들끼리 물어보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foes may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Although this gospel of the kingdom never fails to bring great peace to the soul of the individual believer, it will not bring peace on earth until man is willing to believe my teaching wholeheartedly and to establish the practice of doing the Father's will as the chief purpose in living the mortal life.

180:6.2 (1951.3) “Now that I am leaving you, seeing that the hour has come when I am about to go to the Father, I am surprised that none of you have asked me, Why do you leave us? Nevertheless, I know that you ask such questions in your hearts. I will speak to you plainly, as one friend to another. It is really profitable for you that I go away. If I go not away, the new teacher cannot come into your hearts. I must be divested of this mortal body and be restored to my place on high before I can send this spirit teacher to live in your souls and lead your spirits into the truth. And when my spirit comes to indwell you, he will illu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sin and righteousness and will enable you to judge wisely in your hearts concerning them.

180:6.3 (1951.4) “I have yet much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stand any more just now. Al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shall eventually guide you into all truth as you pass through the many abodes in my Father's universe.

180:6.4 (1951.5) “This spirit will not speak of himself, but he will declare to you that which the Father has revealed to the Son, and he will even show you things to come; he will glorify me even as I have glorified my Father. This spirit comes forth from me, and he will reveal my truth to you. Everything which the Father has in this domain is now mine; wherefore did I say that this new teacher would take of that which is mine and reveal it to you.

180:6.5 (1952.1)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leave you for a short time. Afterward, when you again see me, I shall already be on my way to the Father so that even then you will not see me for long.”

180:6.6 (1952.2) While he paused for a moment, the apostles began to talk with each other: “What is this that he tells us?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leave you,’ and ‘When you see me again it will not be for long, for I will be on my way to the Father.’ What can he mean by this ‘little while’ and ‘not for long’? We cannot understand what he is telling us.”

180:6.7 (1952.3) And since Jesus knew they asked these questions, he said: “Do you inquire among yourselves about what I meant when I said that in a little while I would not be with you, and that, when you would see me again, I would be on my way to the Father? I have plainly told you that the Son of Man must die, but that he will rise again. Can you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들을 납득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기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산통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기뻐하여 고통을 곧 잊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게 되겠지만, 내가 곧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죽음을 이기는 바로 이 생명의 계시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모든 요청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였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본 뒤에는, 너희는 또한 내 이름으로도 구하여도 되며,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격언으로 가르쳤고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오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그의 왕국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보다 충분하게 계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필사 사람들은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너희 눈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영성장 안에서 완전해지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 자신을 볼 것이다.”

그의 말씀을 들은 열 한 사도들은 서로 말했다; “보라, 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주(主)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열 한 사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에 오래-젖어온 그들의 관념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의 왕국이 영광스럽게 물질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여기는 깊은-뿌리박힌 개념은 갈수록 더욱 문제가 되었다.

not then discern the meaning of my words? You will first be made sorrowful, but later on will you rejoice with many who will understand these things after they have come to pass. A woman is indeed sorrowful in the hour of her travail, but when she is once delivered of her child, she immediately forgets her anguish in the joy of the knowledge that a man has been born into the world. And so are you about to sorrow over my departure, but I will soon see you again, and then will your sorrow be turned into rejoicing, and there shall come to you a new revelation of the salvation of God which no man can ever take away from you. And all the worlds will be blessed in this same revelation of life in effecting the overthrow of death. Hitherto have you made all your requests in my Father's name. After you see me again, you may also ask in my name, and I will hear you.

180:6.8 (1952.4) “Down here I have taught you in proverbs and spoken to you in parables. I did so because you were only children in the spirit; but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talk to you plainly concerning the Father and his kingdom. And I shall do this because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and desires to be more fully revealed to you. Mortal man cannot see the spirit Father; therefore have I come into the world to show the Father to your creature eyes. But when you have become perfected in spirit growth, you shall then see the Father himself.”

180:6.9 (1952.5) When the eleven had heard him speak, they said to each other: “Behold, he does speak plainly to us. Surely the Master did come forth from God. But why does he say he must return to the Father?” And Jesus saw that they did not even yet comprehend him. These eleven men could not get away from their long-nourished ideas of the Jewish concept of the Messiah. The more fully they believed in Jesus as the Messiah, the more troublesome became these deep-rooted notions regarding the glorious material triumph of the kingdom on earth.

제 181 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 180

유랜시아 책

18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1 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색션

소개

제 1 장. 마지막 위로의 말씀

제 2 장. 개인적인 작별의 훈계

PAPER 181

FINAL ADMONITIONS AND
WARNINGS

SECTIONS

Introduction

1. Last Words of Comfort

2. Farewell Personal Admonitions

소개

열 한 사도들에게, 고별 강연을 마친 후에, 예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전체로서 혹은 개별존재들로서 관련이 있었던 많은 체험들을 자세히 말씀하였다. 마침내 이 갈릴리인 들은 그들의 친구요 선생님이 그들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과 다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그들은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이 재회도 역시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으려하고 있었다. 사도들과 수제자들 대부분은 잠시 동안 (부활과 상승 사이의 짧은 기간) 돌아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와 짧은 회담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다가 그 후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것을 뜻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그들의 선입관적인 믿음과 열렬한 희망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일생 동안의 믿음과 소원 성취의 희망이 그렇게 부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렬한 기대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주(主)의 말씀의 해석을 찾는 일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별 강연이 토론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후에, 예수는 지시를 하고 자신의 최종적인 훈계와 경고의 전달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다시 부르셨다.

INTRODUCTION

181:0.1 (1953.1)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rewell discourse to the eleven, Jesus visited informally with them and recounted many experiences which concerned them as a group and as individuals. At last it was beginning to dawn upon these Galileans that their friend and teacher was going to leave them, and their hope grasped at the promise that, after a little while, he would again be with them, but they were prone to forget that this return visit was also for a little while. Many of the apostles and the leading disciples really thought that this promise to return for a short season (the short interval between the resurrection and the ascension) indicated that Jesus was just going away for a brief visit with his Father, after which he would return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such an interpretation of his teaching conformed both with their preconceived beliefs and with their ardent hopes. Since their lifelong beliefs and hopes of wish fulfillment were thus agreed, it was not difficult for them to find an interpretation of the Master's words which would justify their intense longings.

181:0.2 (1953.2) After the farewell discourse had been discussed and had begun to settle down in their minds, Jesus again called the apostles to order and began the impartation of his final admonitions and warnings.

제 1 장. 마지막 위로의 말씀

열 한 사도들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예수가 일어나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한에는, 너희 가운데 또는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한 개별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이 (육신의) 필사자 본성의 띠개 틀에서 해방되고 나면, 너희들 각자에게 그리고 왕국 복음을 믿는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영 내주자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혼 속에 영적 육신화가 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서 살고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이 일생 동안 더 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하늘들의 하늘 안에 있는 미래의 일생에서 많은 거주지들을 거치면서 너희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 속에서의 생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인 편안함 속에서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진리, 그리고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많고 많은 각각의 장소들은 정류장으로,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생(生)이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서 완전한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신성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한다.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가 나를 좇아오려거든, 내 가르침의 정신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 일생의 이상에 따라 살도록 너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필연적으로 요청된 육신으로서의 내 본성적인 일생을 모방하려 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너희들 소수들만이 나를 충분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들에게 부어주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선생을, 혼의 안내와 조연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깨우쳐지고 정화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우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려 함으로, 위로의 말을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이들 선물을 세상에 주려고 만드는데—따져보면서—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각자에게 너희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며, 너희도 내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겠지만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는, 내가 반드시 새로운 선생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가슴 안에 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1. LAST WORDS OF COMFORT

181:1.1 (1953.3) When the eleven had taken their seats, Jesus stood and addressed them: “As long as I am with you in the flesh, I can be but one individual in your midst or in the entire world. But when I have been delivered from this investment of mortal nature, I will be able to return as a spirit indweller of each of you and of all other believers in this gospel of the kingdom. In this way the Son of Man will become a spiritual incarnation in the souls of all true believers.

181:1.2 (1953.4) “When I have returned to live in you and work through you, I can the better lead you on through this life and guide you through the many abodes in the future life in the heaven of heavens. Life in the Father’s eternal creation is not an endless rest of idleness and selfish ease but rather a ceaseless progression in grace, truth, and glory. Each of the many, many stations in my Father’s house is a stopping place, a life designed to prepare you for the next one ahead. And so will the children of light go on from glory to glory until they attain the divine estate wherein they are spiritually perfected even as the Father is perfect in all things.

181:1.3 (1953.5) “If you would follow after me when I leave you, put forth your earnest efforts t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y teachings and with the ideal of my life — the doing of my Father’s will. This do instead of trying to imitate my natural life in the flesh as I have, perforce, been required to live it on this world.

181:1.4 (1954.1)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but only a few of you have chosen fully to receive me.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but all men will not choose to receive this new teacher as the guide and counselor of the soul. But as many as do receive him shall be enlightened, cleansed, and comforted. And this Spirit of Truth will become in them a well of living water springing up into eternal life.

181:1.5 (1954.2) “And now, as I am about to leave you, I would speak words of comfort.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make these gifts not as the world gives — by measure — I give each of you all you will receive.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fearful. I have overcome the world, and in me you shall all triumph through faith. I have warned you that the Son of Man will be killed, but I assure you I will come back before I go to the Father, even though it be for only a little while. And after I have ascended to the Father, I will surely send the new teacher to be with you and to abide in your very hearts. And when you see all this come to pass, be not dismayed, but rather believe, inasmuch as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믿으라. 나는 너희를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였으며,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 시간이 이르렀다.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널리 흩어지고 많은 슬픔으로 낙심한 후에도 이들 진리 가운데 어느 것도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적의 손에 남겨둔 채로, 저마다의 자리로 각 사람이 흩어졌을 때, 너희가 나의 고립을 알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혼자 임을 느낄 때,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고립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있는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 왔던 이들 일들의 모든 것은, 너희가 평화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것이나, 힘차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해 왔고 영원한 기쁨과 영속하는 봉사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 왔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 동료 일꾼들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물질 세계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계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물질주의자들과 숙명론자들은 오직 두 가지의 평화와 혼의 위로만을 즐기고자 원할 수 있다: 필연적인 것은 마주할 것이고 그리고 최악의 것은 견디어 내겠다는 확고한 해결책을 지닌 금욕주의자이어야만 한다; 아니면 실제로는 결코 오지 않는 평화를 헛되이 동경하면서, 인간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희망에 언제까지나 빠져있는 낙천주의자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와 낙천주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데, 봉사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으로의 자기 형제들에게 주시는 장엄한 평화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미가엘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필사자 일생을 사셨을 때 그의 혼을 채웠던 바로 그 평안이다. 예수의 평안은 육신으로 필사자의 일생을 사는 동안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충만하게 배우는 승리를 획득한, 하느님을 아는 개별존재의 기쁨과 만족이다. 예수 마음의 평안은 신성한 아버지의 슬기롭고 동정심 가득한 돌보심의 실재성에 대한 절대적인 인간 신앙 위에 기초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고생하였고, “고난의 사람”이라고 잘못 불렸지만, 이 모든 체험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생의 목적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었던 그 자신감의 위안을 즐겼다.

예수는 자신의 임무 완수에 단호하였고 불변하였으며 속속들이 헌신적이었지만, 무감각하고 냉담한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으며; 자기 일생의 체험에 있어서 밝은 측면을 항상 추구하였지만, 눈이 멀고 자아-기만적인 낙천주의자는 아니셨다.

you knew it all beforehand. I have loved you with a great affection, and I would not leave you, but it is the Father's will. My hour has come.

181:1.6 (1954.3) “Doubt not any of these truths even after you are scattered abroad by persecution and are downcast by many sorrows. When you feel that you are alone in the world, I will know of your isolation even as, when you ar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place, leaving the Son of Man in the hands of his enemies, you will know of mine. But I am never alone; always is the Father with me. Even at such a time I will pray for you. And all of these things have I told you that you might have peac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triumphed in the world and shown you the way to eternal joy and everlasting service.”

181:1.7 (1954.4) Jesus gives peace to his fellow doers of the will of God but not on the order of the joys and satisfactions of this material world. Unbelieving materialists and fatalists can hope to enjoy only two kinds of peace and soul comfort: Either they must be stoics, with steadfast resolution determined to face the inevitable and to endure the worst; or they must be optimists, ever indulging that hope which springs eternal in the human breast, vainly longing for a peace which never really comes.

181:1.8 (1954.5) A certain amount of both stoicism and optimism are serviceable in living a life on earth, but neither has aught to do with that superb peace which the Son of God bestows upon his brethren in the flesh. The peace which Michael gives his children on earth is that very peace which filled his own soul when he himself lived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and on this very world. The peace of Jesus is the joy and satisfaction of a God-knowing individual who has achieved the triumph of learning fully how to do the will of God while liv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peace of Jesus' mind was founded on an absolute human faith in the actuality of the divine Father's wise and sympathetic overcare. Jesus had trouble on earth, he has even been falsely called the “man of sorrows,” but in and through all of these experiences he enjoyed the comfort of that confidence which ever empowered him to proceed with his life purpose in the full assurance that he was achieving the Father's will.

181:1.9 (1954.6) Jesus was determined, persistent, and thoroughly devoted to the accomplishment of his mission, but he was not an unfeeling and calloused stoic; he ever sought for the cheerful aspects of his life experiences, but he was not a

주(主)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아셨으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평안을 자기 친구들 각자에게 증여한 후에, “너희는 가슴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일괄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예수의 평안은 시간과 영원에서의 그의 생애가 안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지혜, 모든-사랑, 그리고 모든-힘을 가지신 영이신 아버지의 관심과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는 아들의 확신과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필사자 마음의 납득을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믿는 가슴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제 2 장. 개인적인 작별의 훈계

주(主)는 사도들에게 집단으로 그의 작별 교훈들을 주고 그의 마지막 훈계를 주시는 것을 마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별의 축복을 주심과 함께, 개별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적 충고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기 위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사도들은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할 때 처음 자리 잡았던 그대로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주(主)가 식탁을 돌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며, 각 사람은 예수가 앞에 와서 말하는 동안 일어나 있었다.

예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아, 너는 나의 형제들 중 제일 젊다. 너는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너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 세 사람들 중의 하나로 안드레가 지명하였다. 이것 이외에도. 너는 나를 대리하여 행동해 왔으며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의 가족들과 관련된 많은 일들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해 주어야만 한다. 요한아, 그리고 나는 내 육친의 가족들을 내가 계속하여 돌볼 것이라는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들의 현재 나의 임무에 대한 혼돈이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었으면 내가 행할 것 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동정심과 조언과 도움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빛을 보게 되어 왕국으로 충분히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동안, 요한아 나는 네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환영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땅에서의 생애를 마칠 시간들이 시작됨으로, 내 가족에 대한 어떤 전갈도 너에게 남길 수 있도록 가까이 곁에 남아 있어라.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 육신의 죽음 이외는 다 완결되었으며,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내 이 세상의 아버지가, 요셉이, 내게 남긴 의무들에 관하여는, 나의 일생 동안 이 의무들을 수행하였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를 대신하여 네가 행해주도록 의지해야만 한다. 요한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제일 젊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기

blind and self-deceived optimist. The Master knew all that was to befall him, and he was unafraid. After he had bestowed this peace upon each of his followers, he could consistently say,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181:1.10 (1955.1) The peace of Jesus is, then, the peace and assurance of a son who fully believes that his career for time and eternity is safely and wholly in the care and keeping of an all-wise, all-loving, and all-powerful spirit Father. And this is, indeed, a peace which passes the understanding of mortal mind, but which can be enjoyed to the full by the believing human heart.

2. FAREWELL PERSONAL ADMONITIONS

181:2.1 (1955.2) The Master had finished giving his farewell instructions and imparting his final admonitions to the apostles as a group. He then addressed himself to saying good-bye individually and to giving each a word of personal advice, together with his parting blessing. The apostles were still seated about the table as when they first sat down to partake of the Last Supper, and as the Master went around the table talking to them, each man rose to his feet when Jesus addressed him.

181:2.2 (1955.3) To John, Jesus said: “You, John, are the youngest of my brethren. You have been very near me, and while I love you all with the same love which a father bestows upon his sons, you were designated by Andrew as one of the three who should always be near me. Besides this, you have acted for me and must continue so to act in many matters concerning my earthly family. And I go to the Father, John, having full confidence that you will continue to watch over those who are mine in the flesh. See to it that their present confusion regarding my mission does not in any way prevent your extending to them all sympathy, counsel, and help even as you know I would if I were to remain in the flesh. And when they all come to see the light and enter fully into the kingdom, while you all will welcome them joyously, I depend upon you, John, to welcome them for me.

181:2.3 (1955.4) “And now, as I enter upon the closing hours of my earthly career, remain near at hand that I may leave any message with you regarding my family. As concerns the work put in my hands by the Father, it is now finished except for my death in the flesh, and I am ready to drink this last cup. But as for the responsibilities left to me by my earthly father, Joseph, while I have attended to these during my life, I must now depend upon you to act in my stead in all these matters. And I have chosen you to do this for me, John, because you are the youngest and will therefore very likely

때문이다.

“우리는 한 때 너와 네 형제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너는 우리와 같이 과격하고 참을성 없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지하고 경솔한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리게 하라고 내게 원하였던 이후로 너는 많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 너는 내가 오늘 밤 너희에게 준 그 새 계명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일에 네 평생을 바쳐라.”

요한 세베대가 다락방에 서 있는 채로, 눈물이 그의 뺨을 흘러내리며, 주(主)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의 주(主)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네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것을 우선 배울 때,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서 그들의 행복에 진실하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후에, 너는 네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한 모든 인간 관심은 동정심과 사심-없는 봉사 그리고 아낌없는 용서를 남독함으로써 육성된다. 아무도 너의 젊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이는 흔히 체험을 대표하고, 인간 관련자들의 어떤 것도 실제적인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권한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분투하라, 특별히 하늘왕국의 형제신분 속에 있는 네 친구들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요한아, 항상 명심하라, 사람들과 분투하지 마라. 너는 왕국을 위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자기의 자리를 차례차례로 옮기면서 가롯 유다의 자리 옆에 잠시 멈추었다. 사도들은 유다가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배반자의 빈자리 옆에 서신 채로 지으시는 예수의 슬픈 표정의 의의(意義)를 그들은 무척 알고 싶어 하였다. 그들 중 누구도, 아마도 안드레를 제외하고, 저녁 일찍 그리고 만찬동안 예수가 그들에게 암시하였지만, 그들의 회개원이 자기 주(主)를 배반하기 위하여 나갔다는 일말의 생각도 가지지 않았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으로, 그들 중의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主)의 말씀을 당분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가 이제 시몬 젤로테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일어서서 이 훈계를 들었다: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를 이 하늘왕국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노력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형제들도 같이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왕국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이 왕국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나는 네가 결국에는 내 복음의 영적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포교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근심한다. 나는 네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향유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네가 나

outlive these other apostles.

181:2.4 (1955.5) “Once we called you and your brother sons of thunder. You started out with us strong-minded and intolerant, but you have changed much since you wanted me to call fire down upon the heads of ignorant and thoughtless unbelievers. And you must change yet more. You should become the apostle of the new commandment which I have this night given you. Dedicate your life to teaching your brethren how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181:2.5 (1955.6) As John Zebedee stood there in the upper chamber, the tears rolling down his cheeks, he looked into the Master's face and said: “And so I will, my Master, but how can I learn to love my brethren more?” And then answered Jesus: “You will learn to love your brethren more when you first learn to love their Father in heaven more, and after you have become truly more interested in their welfare in time and in eternity. And all such human interest is fostered by understanding sympathy, unselfish service, and unstinted forgiveness. No man should despise your youth, but I exhort you always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fact that age oftentimes represents experience, and that nothing in human affairs can take the place of actual experience. Strive to live peaceably with all men, especially your friends in the brotherhood of the heavenly kingdom. And, John, always remember, strive not with the souls you would win for the kingdom.”

181:2.6 (1956.1) And then the Master, passing around his own seat, paused a moment by the side of the place of Judas Iscariot. The apostles were rather surprised that Judas had not returned before this, and they were very curious to know the significance of Jesus' sad countenance as he stood by the betrayer's vacant seat. But none of them, except possibly Andrew, entertained even the slightest thought that their treasurer had gone out to betray his Master, as Jesus had intimated to them earlier in the evening and during the supper. So much had been going on that, for the time being, they had quite forgotten about the Master's announcement that one of them would betray him.

181:2.7 (1956.2) Jesus now went over to Simon Zelotes, who stood up and listened to this admonition: “You are a true son of Abraham, but what a time I have had trying to make you a son of this heavenly kingdom. I love you and so do all of your brethren. I know that you love me, Simon, and that you also love the kingdom, but you are still set on making this kingdom come according to your liking. I know full well that you will eventually grasp the spiritual nature and meaning of my gospel, and that you will do valiant work in its proclamation, but I am distressed about what may happen to you when I depart. I would rejoice to know that you would not falter; I would be made

의 사도임을 그만두지 않을 것을, 그리고 하늘왕국의 대사로써 기꺼이 처신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예수는 불같은 성격의 그 지사(志士)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애써 말씀을 멈추었다: “주(主)여, 제 충성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主)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제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며, 저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실망도 견디어냈으며,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힘이 솟아나지만, 그러나 내 착한 친구여,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순간도 나는 네 충성심과 헌신을 의심해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고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하듯이,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확실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하여 내 제자들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 시몬아,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는 진리와 마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나는 나와 그리고 왕국에 대한 너의 충성심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내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과, 너의 잘못된 개념들을 왕국 안에 있는 또 다른 실체에 그리고 관련자들의 영적 계층에 맞춰 조절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깨어나면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시몬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가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씀을 계속했다; “사도들 중에서 가슴으로 너보다 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너보다 더 당황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가 용기를 잃은 모든 상황에 내 영은 네 안에 거할 것이며, 형제들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시민관계와 아버지의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관계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모두 깊이 새겨 두어라. 시몬아, 왕국의 형제신분 속에서 세상 권세에 대한 일시적인 의무와 왕국의 형제신분으로서 영적 봉사의 동시적 깨달음에 대한 나의 훈계를 필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꺼이 이행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내 일생을 바쳐라. 네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현세의 통치자들이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경의와 경배를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의 시민관계와 하늘에서의 아들관계들의 요구 사이에 충돌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시몬아, 그리고 이제, 네가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네가 너의 의기소침을 떨쳐버린 후에 이 복음을 큰 힘으로 전파하고 나와

happy if I could know that, after I go to the Father, you would not cease to be my apostle, and that you would acceptably deport yourself as an ambassador of the heavenly kingdom.”

181:2.8 (1956.3) Jesus had hardly ceased speaking to Simon Zelotes when the fiery patriot, drying his eyes, replied: “Master, have no fears for my loyalty. I have turned my back upon everything that I might dedicate my life to the establishment of your kingdom on earth, and I will not falter. I have survived every disappointment so far, and I will not forsake you.”

181:2.9 (1956.4) And then, laying his hand on Simon's shoulder, Jesus said: “It is indeed refreshing to hear you talk like that, especially at such a time as this, but, my good friend, you still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Not for one moment would I doubt your loyalty, your devotion; I know you would not hesitate to go forth in battle and die for me, as all these others would” (and they all nodded a vigorous approval), “but that will not be required of you. I have repeatedly told you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and that my disciples will not fight to effect its establishment. I have told you this many times, Simon, but you refuse to face the truth. I am not concerned with your loyalty to me and to the kingdom, but what will you do when I go away and you at last wake up to the realization that you have failed to grasp the meaning of my teaching, and that you must adjust your misconceptions to the reality of another and spiritual order of affairs in the kingdom?”

181:2.10 (1956.5) Simon wanted to speak further, but Jesus raised his hand and, stopping him, went on to say: “None of my apostles are more sincere and honest at heart than you, but not one of them will be so upset and disheartened as you, after my departure. In all of your discouragement my spirit shall abide with you, and these, your brethren, will not forsake you. Do not forget what I have taught you regarding the relation of citizenship on earth to sonship in the Father's spiritual kingdom. Ponder well all that I have said to you about rendering 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and to God that which is God's. Dedicate your life, Simon, to showing how acceptably mortal man may fulfill my injunction concerning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emporal duty to civil powers and spiritual service in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If you will be taught by the Spirit of Truth, never will there be conflict between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on earth and sonship in heaven unless the temporal rulers presume to require of you the homage and worship which belong only to God.

181:2.11 (1957.1) “And now, Simon, when you do finally see all of this, and after you have shaken off your depression and have gone forth proclaiming this

갈 때, 너의 모든 낙심하는 시기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바로 끝까지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나 나의 사도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너의 뜻을 더욱 충만하게 복종시킨 후, 그러면 너는 나의 대사로서 다시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들에 대한 너의 이해가 느리다고 하여,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을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몬아, 영으로 애쓰는 자들은 현재 그러한 왕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는 왕국에서 영속하는 생명을 얻는 반면,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다시 한 번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네 손에 맡겨진 일이 이 땅에서 완결되어지게 되면, 시몬아, 너는 저곳에 있는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너는 내가 동경하던, 그러나 이 생애에서는 없는, 왕국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시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계속 하여라,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가 시몬 젤로떼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레위 마태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사도회의 제정 충당을 위하여 더 이상 수고하지 말라. 곧, 바로 곧 너희가 모두 흩어질 것이다; 심지어 너는 네 형제 중 하나이고도 위안하고 떠받치는 관계적-연합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왕국 복음을 전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에, 너는 스스로 새로운 연관-동료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훈련기간 동안 둘 씩 짝지어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떠나고, 네가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나면, 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면서 세상 끝까지 혼자 가게 될 것이다: 신앙으로 다시 태어난 필사자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그렇지만 주(主)여, 누가 우리를 보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드레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 때 예수가 대답했다; “레위야, 그렇지 않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이상 너희를 지도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선생이 오는 날까지 그가 정말로 네 친구로서 그리고 조연자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그 때가 되면 진리의 영이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도록 너희 각자를 멀리까지 안내할 것이다. 네가 세관에서 나를 처음 따랐던 날 이후로 너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우애에서의 관계적-연합 안에서 같이 지내는 형제신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네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네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하는 일에 너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힘차게 돌아서라. 레위야, 네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네가 형제들의 자신감과 애정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너를 사랑한다.” (열 사도들 모두는 주(主)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레위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네 형제들

gospel in great power, never forget that I was with you even through all of your season of discouragement, and that I will go on with you to the very end. You shall always be my apostle, and after you become willing to see by the eye of the spirit and more fully to yield your will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then will you return to labor as my ambassador, and no one shall take away from you the authority which I have conferred upon you, because of your slowness of comprehending the truths I have taught you. And so, Simon, once more I warn you that they who fight with the sword perish with the sword, while they who labor in the spirit achieve life everlasting in the kingdom to come with joy and peace in the kingdom which now is. And when the work given into your hands is finished on earth, you, Simon, shall sit down with me in my kingdom over there. You shall really see the kingdom you have longed for, but not in this life. Continue to believe in me and in that which I have revealed to you,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181:2.12 (1957.2)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to Simon Zelotes, he stepped over to Matthew Levi and said: “No longer will it devolve upon you to provide for the treasury of the apostolic group. Soon, very soon, you will all be scattered; you will not be permitted to enjoy the comforting and sustaining association of even one of your brethren. As you go onwar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you will have to find for yourselves new associates. I have sent you forth two and two during the times of your training, but now that I am leaving you, after you have recovered from the shock, you will go out alone,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proclaiming this good news: That faith-quickened mortals are the sons of God.”

181:2.13 (1957.3) Then spoke Matthew: “But, Master, who will send us, and how shall we know where to go? Will Andrew show us the way?” And Jesus answered: “No, Levi, Andrew will no longer direct you in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He will, indeed, continue as your friend and counselor until that day whereon the new teacher comes, and then shall the Spirit of Truth lead each of you abroad to labor for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Many changes have come over you since that day at the customhouse when you first set out to follow me; but many more must come before you will be able to see the vision of a brotherhood in which gentile sits alongside Jew in fraternal association. But go on with your urge to win your Jewish brethren until you are fully satisfied and then turn with power to the gentiles. One thing you may be certain of, Levi: You have won the confidence and affection of your brethren; they all love you.” (And all ten of them signified their acquiescence in the Master’s words.)

181:2.14 (1958.1) “Levi, I know much about your

이 알지 못하는, 너의 염려와 희생과 수고를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그가 이곳에 없지만, 세리 대사였던 네가 이곳에서 왕국의 메신저들과 함께 나의 작별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쁨을 향유하게 되었다. 네가 영의 눈으로 나의 가르침의 의미를 식별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이 네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용감하게 사람의 아들을 따랐으며 왕국 복음을 믿는 미움 받은 세금 징수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네 형제들이—온 세상까지도—볼 수 있게 해 주어라. 레위야, 내가 다른 갈릴리인 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였다. 아버지도 아들도 편파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서, 너의 사명활동으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네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마태야, 너의 전체 미래 일생 봉사를 하느님이 개인들을 구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전념하라; 그것은 곧 하느님의 시야 안에서는, 그리고 왕국의 동료 관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묵묵히 서서 주(主)의 말씀을 듣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걸어가서서 말했다; “야고보야, 언젠가 너와 네 동생이 내게 와서 왕국 영예의 우선을 구하였을 때, 내가 그러한 영예는 아버지께서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네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희 둘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네가 그 때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가 앞으로 겪어야 할 체험을 통하여 네가 그러한 봉사의 준비가 곧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네가 형제들을 화나게 했었다. 만일 그들이 이미 너를 충분히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를 충분히 용서할 것이다. 네 사명활동 기간이 길든지 아니던 쯤든지, 너는 끝까지 참아라. 새로운 선생이 오면, 연민과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과 나에 대한 숭고한 자신감에서 탄생된 동정심어린 관용의 자세를 배워라. 하느님을 아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사도의 인간적 애정과 신성한 위엄이 병합되어진 그러한 것을 실증하는 것에 네 일생을 바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는 태도를 통해서까지도 복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와 네 동생 요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둘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왕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가 용기는 물론, 마찬가지로 사려 깊은 분별력을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욱 많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네 공격적인 태도에 맞추어서 총명성도 배워야만 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제자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장엄한 순간이 도래하겠지만, 평범한 상황 하에서는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기 위하여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네 힘이 닿는 대로, 너의 여러 해 동안의 일생이, 혼들을 하늘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열매를 맺도록 세상에서 오래 살아라,”

anxieties, sacrifices, and labors to keep the treasury replenished which your brethren do not know, and I am rejoiced that, though he who carried the bag is absent, the publican ambassador is here at my farewell gathering with the messengers of the kingdom. I pray that you may discern the meaning of my teaching with the eyes of the spirit. And when the new teacher comes into your heart, follow on as he will lead you and let your brethren see — even all the world — what the Father can do for a hated tax-gatherer who dared to follow the Son of Man and to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Even from the first, Levi, I loved you as I did these other Galileans. Knowing then so well that neither the Father nor the Son has respect of persons, see to it that you make no such distinctions among those who become believers in the gospel through your ministry. And so, Matthew, dedicate your whole future life service to showing all men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that, in the sight of God and in the fellowship of the kingdom, all men are equal, all believers are the sons of God.”

181:2.15 (1958.2) Jesus then stepped over to James Zebedee, who stood in silence as the Master addressed him, saying: “James, when you and your younger brother once came to me seeking preferment in the honors of the kingdom, and I told you such honors were for the Father to bestow, I asked if you were able to drink my cup, and both of you answered that you were. Even if you were not then able, and if you are not now able, you will soon be prepared for such a service by the experience you are about to pass through. By such behavior you angered your brethren at that time. If they have not already fully forgiven you, they will when they see you drink my cup. Whether your ministry be long or short, possess your soul in patience. When the new teacher comes, let him teach you the poise of compassion and that sympathetic tolerance which is born of sublime confidence in me and of perfect submission to the Father’s will. Dedicate your life to the demonstration of that combined human affection and divine dignity of the God-knowing and Son-believing disciple. And all who thus live will reveal the gospel even in the manner of their death. You and your brother John will go different ways, and one of you may sit down with me in the eternal kingdom long before the other. It would help you much if you would learn that true wisdom embraces discretion as well as courage. You should learn sagacity to go along with your aggressiveness. There will come those supreme moments wherein my disciples will not hesitate to lay down their lives for this gospel, but in all ordinary circumstances it would be far better to placate the wrath of unbelievers that you might live and continue to preach the glad tidings. As far as lies in your power, live long on the earth that your life of many years may be fruitful in souls won for

주(主)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 쪽으로 걸어가셨으며, 자신의 신실한 조력자의 눈을 보시면서 말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왕국의 대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면서 신실하게 나를 대표하였다. 네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의심도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위협스런 소심함을 현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관-동료들을 대하면서 항상 진실로 옳게 행동하였으며, 탁월한 공정성을 보여주었다. 너와 네 형제들이 왕국의 메신저로 사도 임명을 받은 이후로, 내가 선택받은 그들의 우두머리로 너를 지명한 것 외에는, 모든 그룹 행정-관리적 관련사들에서 내가 자아-관리로 움직여왔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였던 것은 내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무리들의 토의를 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도자관계를 주기 위함이었다. 나의 우주 안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우주들의 우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아들들은 그들의 모든 영적 관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취급되지만, 모든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확한 영도자관계를 임명한다. 우리들의 왕국은 계층이 있는 세계이며, 둘 이상의 의지적 창조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며, 그곳에는 항상 영도자관계의 권한이 제공되어있다.

“그리고 안드레야, 지금은 내가 임명한 권한에 의하여 네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나의 개인적 대리인으로 봉사해 왔고,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현세적이고 행정-관리적인 관련사들에 관계된 모든 의무를 벗겨준다. 지금부터 너는 영적 영도자로서 네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고,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제들에 대하여 어떤 지배권도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그들의 명확한 동의에 의해서 내게 지배권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후로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의 행정-관리적 우두머리로서의 의무로부터 면하여 준 사실이, 내가 육신으로 떠남과, 너희의 가슴속에 거하며 결국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될 새로운 선생을 보내는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날, 바로 닥칠 시련 기간 동안, 확실하고 사랑하는 손으로 네 형제들을 결속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너의 도덕적인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든 경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중 하나로서의 나의 현존에 발단이 되고 권한을 가졌던 모든 행정-관리적 의무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 오직 영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네 형제들이 내게 계속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가 모든 현세와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진지하게 복음을 믿는 여러 종류의 무리들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내게 명한다. 네

the heavenly kingdom.”

181:2.16 (1958.3) When the Master had finished speaking to James Zebedee, he stepped around to the end of the table where Andrew sat and, looking his faithful helper in the eyes, said: “Andrew, you have faithfully represented me as acting head of the ambassadors of the heavenly kingdom. Although you have sometimes doubted and at other times manifested dangerous timidity, still, you have always been sincerely just and eminently fair in dealing with your associates. Ever since the ordination of you and your brethren as messengers of the kingdom, you have been self-governing in all group administrative affairs except that I designated you as the acting head of these chosen ones. In no other temporal matter have I acted to direct or to influence your decisions. And this I did in order to provide for leadership in the direction of all your subsequent group deliberations. In my universe and in my Father’s universe of universes, our brethren-sons are dealt with as individuals in all their spiritual relations, but in all group relationships we unfailingly provide for definite leadership. Our kingdom is a realm of order, and where two or more will creatures act in co-operation, there is always provided the authority of leadership.

181:2.17 (1959.1) “And now, Andrew, since you are the chief of your brethren by authority of my appointment, and since you have thus served as my personal representative, and as I am about to leave you and go to my Father, I release you from all responsibility as regards these tempor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From now on you may exercise no jurisdiction over your brethren except that which you have earned in your capacity as spiritual leader, and which your brethren therefore freely recognize. From this hour you may exercise no authority over your brethren unless they restore such jurisdiction to you by their definite legislative action after I shall have gone to the Father. But this release from responsibility as the administrative head of this group does not in any manner lessen your moral responsibility to do everything in your power to hold your brethren together with a firm and loving hand during the trying time just ahead, those days which must intervene between my departure in the flesh and the sending of the new teacher who will live in your hearts, and who ultimately will lead you into all truth. As I prepare to leave you, I would liberate you from al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hich had its inception and authority in my presence as one among you. Henceforth I shall exercise only spiritual authority over you and among you.

181:2.18 (1959.2) “If your brethren desire to retain you as their counselor, I direct that you should, in all matters temporal and spiritual, do your utmost to promote peace and harmony among the various groups of sincere gospel believers. Dedicate the

형제들 가운데에서 우에 있는 사랑의 실천적 측면을 증진시키는 일에 너의 남은 일생을 바쳐라. 세상에 있는 내 육친의 형제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믿게 될 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서쪽의 그리스인들과 동쪽의 아브너에게 사랑과 공명정대한 헌신을 현시하라. 하느님의 아들 됨으로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사도들이 비록 곧 세상의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바로 앞의 시련기간 동안 너는 그들을 결속시켜야 하며, 그 격렬한 시험 기간 동안 너는 새로운 선생인 진리의 영이 도래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나의 개인적 현존이 같이 있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길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안드레아,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네게 맡겨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과 조언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기 바란다.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네 역할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 후에는 네가 이 사명활동을 영원한 왕국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가지고 있다고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알페오 쌍둥이에게 다가가서서 둘 사이에 서신 후 말했다; “내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기로 선택한 세 그룹의 형제들 중의 하나이다. 너희들 여섯 명이 모두 육신으로 평화롭게 일을 잘하였으며, 너희들보다 더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려운 때가 우리 목전에 이르렀다. 너희는 너희와 형제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한 때 왕국의 일에 부름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군중들을 다루어야 할 일이 당분간 없겠지만, 낙담하지 말고; 너희가 필생의 과업을 완결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높은 곳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 구원을 세라핌천사 무리들과 높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평범한 일을 고양시키는 것에 너희 평범한 노역을 바치도록 하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필사 사람이, 하느님의 특별한 봉사임무에서 한 동안 일하도록 부름을 받아 일한 후에, 얼마나 기쁘고 용기 있게 이전의 노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 주어라. 얼마동안의 왕국의 외향적 관련사들에 대한 너희 역할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면,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 관계를 체험한 새로운 깨우침으로, 하느님을-아는 자에게는 그 어떤 노동과 노역도 평범하고 세속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고양된 실현으로,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였던 너희에게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봉사가 되었다. 그리고 전에 너희와 함께 사도였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거든, 하느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봉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기쁨을 향유하면서 너희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여라. 너희는 내 사도들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며, 오는 왕국에서 너희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빌립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선 채로 다음과 같은 주(主)의 말씀을 들었다: “빌립아, 너는 내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하였

remainder of your life to promoting the practical aspects of brotherly love among your brethren. Be kind to my brothers in the flesh when they come fully to believe this gospel; manifest loving and impartial devotion to the Greeks in the West and to Abner in the East. Although these, my apostles, are soon going to be scatter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re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salvation of sonship with God, you are to hold them together during the trying time just ahead, that season of intense testing during which you must learn to believe this gospel without my personal presence while you patiently await the arrival of the new teacher, the Spirit of Truth. And so, Andrew, though it may not fall to you to do the great works as seen by men, be content to be the teacher and counselor of those who do such things. Go on with your work on earth to the end, and then shall you continue this ministry in the eternal kingdom, for have I not many times told you that I have other sheep not of this flock?”

181:2.19 (1959.3) Jesus then went over to the Alpheus twins and, standing between them, said: “My little children, you are one of the three groups of brothers who chose to follow after me. All six of you have done well to work in peace with your own flesh and blood, but none have done better than you. Hard times are just ahead of us. You may not understand all that will befall you and your brethren, but never doubt that you were once called to the work of the kingdom. For some time there will be no multitudes to manage, but do not become discouraged; when your lifework is finished, I will receive you on high, where in glory you shall tell of your salvation to seraphic hosts and to multitudes of the high Sons of God. Dedicate your lives to the enhancement of commonplace toil. Show all men on earth and the angels of heaven how cheerfully and courageously mortal man can, after having been called to work for a season in the special service of God, return to the labors of former days. If, for the time being, your work in the outward affairs of the kingdom should be completed, you should go back to your former labors with the new enlightenment of the experience of sonship with God and with the exalted realization that, to him who is God-knowing,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mon labor or secular toil. To you who have worked with me, all things have become sacred, and all earthly labor has become a service even to God the Father. And when you hear the news of the doings of your former apostolic associates, rejoice with them and continue your daily work as those who wait upon God and serve while they wait. You have been my apostles, and you always shall be, and I will remember you in the kingdom to come.”

181:2.20 (1960.1) And then Jesus went over to Philip, who, standing up, heard this message from his Master: “Philip, you have asked me many foolish questions, but I have done my utmost to answer

지만, 나는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대답하였으며, 이제 아주 정직하기는 하지만 비(非)영적인 네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질문들 중에서 최종적인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려고 한다.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동안에도 너는 스스로에게 '만일 주(主)가 떠나시고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항상 질문하곤 하였다. 오, 신앙이 적은 자여! 너도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부족되지 않을 만큼 갖추어졌다. 빌립아, 너는 참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네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현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너의 공식적인 사무장 신분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소명 받은 그 일—왕국 복음 전파—에 더욱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 빌립아, 너는 항상 무언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였는데, 네가 곧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훨씬 더 잘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네가 물질적인 안목에 있어서도 진실하였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영적 통찰력의 축복을 받게 되면, 네 일에 매진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고 물질적인 마음의 눈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실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목적에 네 일생을 바치기 바란다. 빌립아, 이 세상에는 네가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일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네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라. 네가 큰일들을 감당해야하며, 그것이 신앙으로 완결되어진 후에는, 네가 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으며 필사자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네게 보여주면서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동안에, 너는 영의 왕국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어, 내가 영적 왕국에서 너를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선생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렇게 하여, 내가 세상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룰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너를 위하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주(主)는 나다니엘에게로 가셨다. 나다니엘이 일어나자 예수는 그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의 옆에 앉으시고 말했다; “나다니엘아, 너는 내 사도가 된 후로 증가되는 관용을 실천하고 그리고 편견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배워왔다. 그러나 네가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너의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인하여 네 친구들이 항상 훈계를 받았다는 면에서 너는 네 친구들에게 축복이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너의 솔직함이 오래되거나 새로운 너의 형제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듣는 사람의 지적인 지위와 영적 발달에 맞도록 변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배워야만 한다. 성실성은 사려 깊은 분별력과 합쳐질 때 왕국의 일에 있어서, 최상으로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네가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우게 된다면, 너는 더욱 영구적인 일들을 성취하겠지

every one, and now would I answer the last of such questionings which have arisen in your most honest but unspiritual mind. All the time I have been coming around toward you, have you been saying to yourself, ‘What shall I ever do if the Master goes away and leaves us alone in the world?’ O, you of little faith! And yet you have almost as much as many of your brethren. You have been a good steward, Philip. You failed us only a few times, and one of those failures we utilized to manifest the Father’s glory. Your office of stewardship is about over. You must soon more fully do the work you were called to do — the preaching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Philip, you have always wanted to be shown, and very soon shall you see great things. Far better that you should have seen all this by faith, but since you were sincere even in your material sightedness, you will live to see my words fulfilled. And then, when you are blessed with spiritual vision, go forth to your work, dedicating your life to the cause of leading mankind to search for God and to seek eternal realities with the eye of spiritual faith and not with the eyes of the material mind. Remember, Philip, you have a great mission on earth, for the world is filled with those who look at life just as you have tended to. You have a great work to do, and when it is finished in faith, you shall come to me in my kingdom, and I will take great pleasure in showing you that which eye has not seen, ear heard, nor the mortal mind conceived. In the meantime, become as a little child in the kingdom of the spirit and permit me, as the spirit of the new teacher, to lead you forward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in this way will I be able to do much for you which I was not able to accomplish when I sojourned with you as a mortal of the realm. And always remember,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181:2.21 (1960.2) Then went the Master over to Nathaniel. As Nathaniel stood up, Jesus bade him be seated and, sitting down by his side, said: “Nathaniel, you have learned to live above prejudice and to practice increased tolerance since you became my apostle. But there is much more for you to learn. You have been a blessing to your fellows in that they have always been admonished by your consistent sincerity. When I have gone, it may be that your frankness will interfere with your getting along well with your brethren, both old and new. You should learn that the expression of even a good thought must be mod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llectual status and spiritual development of the hearer. Sincerity is most serviceable in the work of the kingdom when it is wedded to discretion.

181:2.22 (1961.1) “If you would learn to work with your brethren, you might accomplish more permanent things, but if you find yourself going off in quest of

만, 그러나 네가 만일 네가 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벗어나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한다면, 설사 세상에 혼자 있게 되고 네 동료 신자들로부터 온통 고립되었을 때라도, 하느님을-아는 제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네 일생을 바쳐라. 나는 네가 끝까지 신실할 것임을 알며, 언젠가는 내가 너를 저 높은 곳에 있는 내 왕국의 확대된 봉사료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였다: “저는 당신께서 이 왕국의 봉사에 저를 처음 불러주신 때부터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에게 말씀한 모든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없으며, 다른 형제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혼돈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는 나다니엘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했다: “나의 친구여, 네가 영적인 내 가르침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는 네가 유대 전통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너무 방해받기 때문이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내 복음을 해석하려는 너의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너무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의 말로서 네게 많은 것을 가르쳤으며, 너희들 속에서 내 일생을 살았다. 너희 마음을 깨우치고 너희 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으며, 나의 가르침들과 나의 일생을 통해서도 너희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은 모든 선생들의 주(主)—실제 체험—의 손에 의하여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새로운 체험들 속에서,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며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을, 새로운 선생, 그가 왔을 때, 이 땅에서의 너희의 남은 일생을 통하여 두루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 안에서 너희의 훈련을 통하여 남은 모든 것을 네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그들 모두를 보시며 말했다: “복음의 충만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유한한, 필사 사람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무한하고 신성하며 영원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점차적으로 계속 달성해 가는 영원한 시대가 너희 앞에 있으니 끝까지 대담하고 인내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도마에게로 가셨으며, 그는 일어서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도마야, 너는 종종 신앙이 부족하였으나; 어찌되었든지, 네가 의심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선생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네 형제들이 새로운 가르침들에 대한 너의 비판적인 방법을 더욱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모두가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될 때, 너는 여전히 나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those who think as you do, in that event dedicate your life to proving that the God-knowing disciple can become a kingdom builder even when alone in the world and wholly isolated from his fellow believers. I know you will be faithful to the end, and I will some day welcome you to the enlarged service of my kingdom on high.”

181:2.23 (1961.2) Then Nathaniel spoke, asking Jesus this question: “I have listened to your teaching ever since you first called me to the service of this kingdom, but I honestly cannot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all you tell us. I do not know what to expect next, and I think most of my brethren are likewise perplexed, but they hesitate to confess their confusion. Can you help me?” Jesus, putting his hand on Nathaniel's shoulder, said: “My friend, it is not strange that you should encounter perplexity in your attempt to grasp the meaning of my spiritual teachings since you are so handicapped by your preconceptions of Jewish tradition and so confused by your persistent tendency to interpret my gospel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181:2.24 (1961.3) “I have taught you much by word of mouth, and I have lived my life among you. I have done all that can be done to enlighten your minds and liberate your souls, and what you have not been able to get from my teachings and my life, you must now prepare to acquire at the hand of that master of all teachers — actual experience. And in all of this new experience which now awaits you, I will go before you and the Spirit of Truth shall be with you. Fear not; that which you now fail to comprehend, the new teacher, when he has come, will reveal to you throughout the remainder of your life on earth and on through your training in the eternal ages.”

181:2.25 (1961.4) And then the Master, turning to all of them, said: “Be not dismayed that you fail to grasp the full meaning of the gospel. You are but finite, mortal men, and that which I have taught you is infinite, divine, and eternal. Be patient and of good courage since you have the eternal ages before you in which to continue your progressive attainment of the experience of becoming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Paradise is perfect.”

181:2.26 (1962.1) And then Jesus went over to Thomas, who, standing up, heard him say: “Thomas, you have often lacked faith; however, when you have had your seasons with doubt, you have never lacked courage. I know well that the false prophets and spurious teachers will not deceive you. After I have gone, your brethren will the more appreciate your critical way of viewing new teachings. And when you all are scattere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times to come,

것같이 서로 사랑하고 삶 속에서 영의 열매들을 맺으며 영으로 태어난 남자들과 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작용하는 현시활동의 실증에 직면하였을 때, 지적인 의심의 타성을 사람의 비판적인 물질적 마음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일에 네 일생을 바쳐라. 도마야, 네가 우리와 합세한 것을 내가 기뻐하며, 잠시 동안 당황한 후에 네가 왕국의 봉사를 계속하게 될 것을 안다. 너의 의심이 네 형제들을 난처하게 하였지만, 그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자신하며,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네 앞에 갈 것이다.”

그 후에 주(主)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셨으며, 그는 예수가 말하는 동안 일어서 있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왕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네 일생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네가 여러 해 동안 나와 그토록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이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네가 무슨 체험을 해야만 네 입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느냐? 너의 생각 없는 말과, 너의 주제넘은 자아-확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리고 만일 이 약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네가 틀림없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네 형제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이 단점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에 대한 나의 애정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네가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너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네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 오늘밤을 지내는 체험으로부터 반드시 큰 도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몬 베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네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목자가 죽임을 당하고 양들이 멀리 흩어질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중의 일부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의심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와 약속하겠는데 내가 반드시 잠시 동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손을 예수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 형제들이 모두 의심에 사로잡힐지라도, 저만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격양된 감정으로 떨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베드로는 주(主)의 앞에서 있었으며, 예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했다: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서너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나와서 평화로운 관계로부터 배우지 못하였던 것을 심한 고난과 깊은 비애를 통하여 배우게

remember that you are still my ambassador. Dedicate your life to the great work of showing how the critical material mind of man can triumph over the inertia of intellectual doubting when faced by the demonstration of the manifestation of living truth as it operates in the experience of spirit-born men and women who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in their lives, and who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omas, I am glad you joined us, and I know, after a short period of perplexity, you will go on in the service of the kingdom. Your doubts have perplexed your brethren, but they have never troubled me. I have confidence in you, and I will go before you even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181:2.27 (1962.2) Then the Master went over to Simon Peter, who stood up as Jesus addressed him: “Peter, I know you love me, and that you will dedicate your life to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is gospel of the kingdom to Jew and gentile, but I am distressed that your years of such close association with me have not done more to help you think before you speak. What experience must you pass through before you will learn to set a guard upon your lips? How much trouble have you made for us by your thoughtless speaking, by your presumptuous self-confidence! And you are destined to make much more trouble for yourself if you do not master this frailty. You know that your brethren love you in spite of this weakness, and you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is shortcoming in no way impairs my affection for you, but it lessens your usefulness and never ceases to make trouble for you. But you will undoubtedly receive great help from the experience you will pass through this very night. And what I now say to you, Simon Peter, I likewise say to all your brethren here assembled: This night you will all be in great danger of stumbling over me. You know it is written, ‘The shepherd will be smitten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abroad.’ When I am absent, there is great danger that some of you will succumb to doubts and stumble because of what befalls me. But I promise you now that I will come back to you for a little while, and that I will then go before you into Galilee.”

181:2.28 (1962.3) Then said Peter, placing his hand on Jesus’ shoulder: “No matter if all my brethren should succumb to doubts because of you, I promise that I will not stumble over anything you may do. I will go with you and, if need be, die for you.”

181:2.29 (1962.4) As Peter stood there before his Master, all atremble with intense emotion and overflowing with genuine love for him, Jesus looked straight into his moistened eyes as he said: “Peter, verily, verily, I say to you, this night the cock will not crow until you have denied me three or four times. And thus what you have failed to learn from peaceful association with me, you will learn

될 것이다. 너에게 꼭 필요한 이 교훈을 실제로 배우고 난 후에는, 비록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지라도, 그리고 혹시,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사랑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값을 지불하는 일에 나를 따르게 될지라도, 네 형제들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쳐진 네 일생을 계속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약속을 잊지 말아라: 내가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희 각자를 대담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밤에도 아버지께 간청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찬송이 끝난 후에, 그들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야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through much trouble and many sorrows. And after you have really learned this needful lesson, you should strengthen your brethren and go on living a life dedicated to preaching this gospel, though you may fall into prison and, perhaps, follow me in paying the supreme price of loving service in the building of the Father's kingdom.

181:2.30 (1962.5) “But remember my promise: When I am raised up, I will tarry with you for a season before I go to the Father. And even this night will I make supplication to the Father that he strengthen each of you for that which you must now so soon pass through. I love you all with the love wherewith the Father loves me, and therefore should you henceforth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181:2.31 (1962.6) And then,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departed for the camp on the Mount of Olives.

제 182 편 겿세마네 동산에서

⇨ 181

유랜시아 책

18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2 편 겿세마네 동산에서

색션

소개

제 1 장. 마지막 단체 기도

제 2 장. 배반이 있기 전의 마지막 시간

제 3 장. 겿세마네에서 홀로 계심

PAPER 182

IN GETHSEMANE

SECTIONS

Introduction

1. The Last Group Prayer

2. Last Hour Before the Betrayal

3. Alone in Gethsemane

소개

예수가 열 한 사도와 함께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겿세마네 야영지로 돌아온 것은 목요일 밤 열시 경이었다. 동산에 있었던 날 이후로, 요한 마가는 예수를 주시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잠을 자지 못한 요한 마가는 주(主)가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쉴 틈을 얻었지만, 그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재빨리 외투를 걸친 후에, 그들을 따라서 그 도시를 벗어나, 기드온 시내를 넘고, 겿세마네 공원 근처에 사적으로 설치한 야영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이 날 밤과 다음 날 내내 주(主)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므로 모든 일을 목격하였으며 이때부터 십자가 형벌이 있던 시간까지 주(主)가 말씀한 것을 거의 다 듣게 되었다.

예수와 열 한 사도들이 야영지로 돌아오면서,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의미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그들 중의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主)의 암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가롯 유다와 모든 것이 잘되지 않았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야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공개적인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먼저 와서 자기들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한 유다가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모두 안드레에게 물려가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

INTRODUCTION

182:0.1 (1963.1) IT WAS about ten o'clock this Thursday night when Jesus led the eleven apostles from the home of Elijah and Mary Mark on their way back to the Gethsemane camp. Ever since that day in the hills, John Mark had made it his business to keep a watchful eye on Jesus. John, being in need of sleep, had obtained several hours of rest while the Master had been with his apostles in the upper room, but on hearing them coming downstairs, he arose and, quickly throwing a linen coat about himself, followed them through the city, over the brook Kidron, and on to their private encampment adjacent to Gethsemane Park. And John Mark remained so near the Master throughout this night and the next day that he witnessed everything and overheard much of what the Master said from this time on to the hour of the crucifixion.

182:0.2 (1963.2) As Jesus and the eleven made their way back to camp, the apostles began to wonder about the meaning of Judas's prolonged absence, and they spoke to one another concerning the Master's prediction that one of them would betray him, and for the first time they suspected that all was not well with Judas Iscariot. But they did not engage in open comment about Judas until they reached the camp and observed that he was not there, waiting to receive them. When they all besieged Andrew to know what had become of

을 때,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를 버린 것을 염려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Judas, their chief remarked only, “I do not know where Judas is, but I fear he has deserted us.”

제 1 장. 마지막 단체 기도

야영지에 도착한 다음 잠시 후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친구들과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러한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에 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예수는 조금 떨어진 올리브 산으로 길을 인도하였으며,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사도임명 받던 날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무릎을 꿇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 한 가운데에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서신 채로, 그는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을 들고 기도 하였다.

“아버지여, 나의 시간이 닳아 왔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당신을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내 영역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신앙으로 하느님의 아들들이 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창조체들이 당신을 유일한 참된 하느님이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을 높여드렸으며 내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은 자녀들에게 나의 증여는 내가 거의 완결하였으며; 육신으로의 내 생명을 내려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나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광되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 손 쪽에 한 번 더 나를 받아들여주십시오.

“나는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을 현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이고—모든 생명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일생이 나의 아버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친구들이요 대사들인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 당신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려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

1. THE LAST GROUP PRAYER

182:1.1 (1963.3) A few moments after arriving at camp, Jesus said to them: “My friends and brethren, my time with you is now very short, and I desire that we draw apart by ourselves while we pray to our Father in heaven for strength to sustain us in this hour and henceforth in all the work we must do in his name.”

182:1.2 (1963.4) When Jesus had thus spoken, he led the way a short distance up on Olivet, and in full view of Jerusalem he bade them kneel on a large flat rock in a circle about him as they had done on the day of their ordination; and then, as he stood there in the midst of them glorified in the mellow moonlight, he lifted up his eyes toward heaven and prayed:

182:1.3 (1963.5) “Father, my hour has come; now glorify your Son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I know that you have given me full authority over all living creatures in my realm, and I will give eternal life to all who will become faith sons of God.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my creatures should know you as the only true God and Father of all, and that they should believe in him whom you sent into the world. Father, I have exalted you on earth and have accomplished the work which you gave me to do. I have almost finished my bestowal upon the children of our own creation; there remains only for me to lay down my life in the flesh. And now, O my Father, glorify me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is world was and receive me once more at your right hand.

182:1.4 (1964.1) “I have manifested you to the men whom you chose from the world and gave to me. They are yours — as all life is in your hands — you gave them to me, and I have lived among them, teaching them the way of life, and they have believed. These men are learning that all I have comes from you, and that the life I live in the flesh is to make known my Father to the worlds. The truth which you have given to me I have revealed to them. These, my friends and ambassadors, have sincerely willed to receive your word. I have told them that I came forth from you, that you sent me into this world, and that I am about to return to you. Father, I do pray for these chosen men. And I pray for them not as I would pray for the world, but as for those whom I have chosen out of the world to represent me to the world after I have returned to your work, even as I have represented you in

에서 당신을 대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의 일로 돌아간 후에 이 세상에 나를 대표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선택한 자들로서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속합니다; 당신께서 저들을 내게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 것이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이 내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높임을 받았으며,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명예롭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며;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들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와 우리 왕국을 대표하도록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으로 일생을 마칠 준비를 함으로 이 사람들의 신실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친구들인 이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새로운 선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들 곁에 있어주십시오.

“당신은 내게 열 두 사람을 주셨고, 하나를 제외하고 저들 모두를 지켰지만, 복수의 아들은 더 이상 우리들과 동료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약하고 여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저들을 믿을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저들을 증명하였고; 그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를 사랑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저들이 하늘왕국에서의 아들관계에 대한 확신의 기쁨으로 또한 가득 차도록 나는 원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으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겠지만, 나는 당신께서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그들에게 내가 계시한 사랑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라고 내가 그들을 분발시켜야 하는 당신의 봉사에,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제 일생을 바쳤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떠난 후에 이 형제들을 지켜달라고 당신께 요청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께서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같이 것처럼 아버지께서 필사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 열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믿고 있거나 또는 저들의 장차 사명활동의 말을 통하여 이후에 왕국 복음을 믿게 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으며, 믿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들 둘 모두 그들 안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당

this world during my sojourn in the flesh. These men are mine; you gave them to me; but all things which are mine are ever yours, and all that which was yours you have now caused to be mine. You have been exalted in me, and I now pray that I may be honored in these men. I can no longer be in this world; I am about to return to the work you have given me to do. I must leave these men behind to represent us and our kingdom among men. Father, keep these men faithful as I prepare to yield up my life in the flesh. Help these, my friends, to be one in spirit, even as we are one. As long as I could be with them, I could watch over them and guide them, but now am I about to go away. Be near them, Father, until we can send the new teacher to comfort and strengthen them.

182:1.5 (1964.2) “You gave me twelve men, and I have kept them all save one, the son of revenge, who would not have further fellowship with us. These men are weak and frail, but I know we can trust them; I have proved them; they love me, even as they reverence you. While they must suffer much for my sake, I desire that they should also be filled with the joy of the assurance of sonship in the heavenly kingdom. I have given these men your word and have taught them the truth. The world may hate them, even as it has hated me, but I do not ask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only that you keep them from the evil in the world.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And as you sent me into this world, even so am I about to send these men into the world. For their sakes I have lived among men and have consecrated my life to your service that I might inspire them to be purified through the truth I have taught them and the love I have revealed to them. I well know, my Father, that there is no need for me to ask you to watch over these brethren after I have gone; I know you love them even as I, but I do this that they may the better realize the Father loves mortal men even as does the Son.

182:1.6 (1964.3) “And now, my Father, I would pray not only for these eleven men but also for all others who now believe, or who may hereafter believe the gospel of the kingdom through the word of their future ministry. I want them all to be one, even as you and I are one.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and I desire that these believers likewise be in us; that both of our spirits indwell them. If my children are one as we are one, and if they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them, all men will then believe that I came forth from you and be willing to

신으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이며 내가 이룬 영광과 진리에 대한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 신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사신 것처럼, 나도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듯이,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었으며, 새로운 선생도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들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것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육신의 내 형제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일해 주셔서, 그들이 곧 영광중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파라다이스에 받아들이셔서 당신과 함께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겸손으로 봉사하는 저들을 나와 함께 영광중에 거하게 해주셔서,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시간에서 뿌려놓은 씨앗의 영원한 수확으로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세우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아버지이신 당신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고, 이 신자들에게도 당신을 알게 하였으며,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바로 그대로—세상에서 그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열 한 사도들은 몇 분 동안 예수 곁에서 둥그렇게 모여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으며, 일어난 후에는 가까이 있는 야영지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합일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획일성을 바라신 것은 아니었다. 죄는 악한 타성에서의 죽은 듯 마비된 차원을 창조하지만, 정의(正義)는 영원한 진리의 살아있는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영이 진보적인 교제 안에서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창조 영을 키운다. 믿는-아들과 신성한 아버지의 영적 동료관계 속에는 교리적 최종이나 집단의식의 분파적 우월성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중에, 주(主)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이미 현시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육신으로 완전한 일생을 통하여 하느님을 계시함으로써 이루신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곤 하였지만, “나는 이시다.”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더 계시해 달라는 간청을 받았을 때, 밝히신 말씀은 오직 “나는 스스로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서의 일생을 완결하였을 때, 이러한 아버지의 이름은 매우 확실히 계시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육신화인 주(主)는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수다.

receive the revelation of truth and glory which I have made.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revealed to these believers. As you have lived with me in spirit, so have I lived with them in the flesh. As you have been one with me, so have I been one with them, and so will the new teacher ever be one with them and in them. And all this have I done that my brethren in the flesh may know that the Father loves them even as does the Son, and that you love them even as you love me. Father, work with me to save these believers that they may presently come to be with me in glory and then go on to join you in the Paradise embrace. Those who serve with me in humiliation, I would have with me in glory so that they may see all you have given into my hands as the eternal harvest of the seed sowing of time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I long to show my earthly brethren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founding of this world. This world knows very little of you, righteous Father, but I know you, and I have made you known to these believers, and they will make known your name to other generations. And now I promise them that you will be with them in the world even as you have been with me — even so.”

182-1.7 (1965.1) The eleven remained kneeling in this circle about Jesus for several minutes before they arose and in silence made their way back to the near-by camp.

182-1.8 (1965.2) Jesus prayed for *unity* among his followers, but he did not desire uniformity. Sin creates a dead level of evil inertia, but righteousness nourishes the creative spirit of individual experience in the living realities of eternal truth and in the progressive communion of the divine spirits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spiritual fellowship of the believer-son with the divine Father there can never be doctrinal finality and sectarian superiority of group consciousness.

182-1.9 (1965.3) The Master, during the course of this final prayer with his apostles, alluded to the fact that he had manifested the Father's *name* to the world. And that is truly what he did by the revelation of God through his perfected life in the flesh. The Father in heaven had sought to reveal himself to Moses, but he could proceed no further than to cause it to be said, “I AM.” And when pressed for further revelation of himself, it was only disclosed, “I AM that I AM.” But when Jesus had finished his earth life, this name of the Father had been so revealed that the Master, who was the Father incarnate, could truly say:

182-1.10 (1965.4) I am the bread of life.

182-1.11 (1965.5) I am the living water.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모든 세대들의 소망이다.
 나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이다.
 나는 끝없는 생명의 실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무한한 완성을 향한 좁은 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존에 이르는 비결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의 유한한 자녀들에게 무한한 아버지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나는 살아있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나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다리이다.
 나는 시간과 영원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 고리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는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를 모든 세대들에게 확대시키셨다. 신성한 사랑이 하느님의 본성을 계시하듯이, 영원한 진리가 끊임없이 확대하는 비례로 그의 이름을 드러낸다.

182:1.12 (1965.6) I am the light of the world.
 182:1.13 (1965.7) I am the desire of all ages.
 182:1.14 (1965.8) I am the open door to eternal salvation.
 182:1.15 (1965.9) I am the reality of endless life.
 182:1.16 (1965.10) I am the good shepherd.
 182:1.17 (1965.11) I am the pathway of infinite perfection.
 182:1.18 (1965.12)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182:1.19 (1965.13) I am the secret of eternal survival.
 182:1.20 (1965.14)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182:1.21 (1965.15) I am the infinite Father of my finite children.
 182:1.22 (1965.16) I am the true vine; you are the branches.
 182:1.23 (1965.17) I am the hope of all who know the living truth.
 182:1.24 (1965.18) I am the living bridge from one world to another.
 182:1.25 (1965.19) I am the living link between time and eternity.
 182:1.26 (1965.20) Thus did Jesus enlarge the living revelation of the name of God to all generations. As divine love reveals the nature of God, eternal truth discloses his name in ever-enlarging proportions.

제 2 장. 배반이 있기 전의 마지막 시간

야영지에 돌아와서 유다가 없는 것을 발견한 사도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열 한 사도들이 반역한 동료 사도에 대하여 열띤 토의를 하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는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들이 여러 날 동안 유다를 유심히 관찰한 사실과 그가 주(主)를 적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친구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한 바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슴이 근심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활기찬 예수의 태도는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심각해지셨으며, 슬픔에 차기까지 하였다. 크게 동요하는 사도들은 주(主)가 직접 각자의 막사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과 요한 마가와 대화의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열 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였다: “나의 친구들아, 가서 쉬어라. 내일 일을 위해 각오를 단단히 하거라. 우

2. LAST HOUR BEFORE THE BETRAYAL

182:2.1 (1966.1) The apostles were greatly shocked when they returned to their camp and found Judas absent. While the eleven were engaged in a heated discussion of their traitorous fellow apostle, David Zebedee and John Mark took Jesus to one side and revealed that they had kept Judas under observation for several days, and that they knew he intended to betray him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Jesus listened to them but only said: “My friends, nothing can happen to the Son of Man unless the Father in heaven so wills.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salvation of men.”

182:2.2 (1966.2) The cheerful attitude of Jesus was waning. As the hour passed, he grew more and more serious, even sorrowful. The apostles, being much agitated, were loath to return to their tents even when requested to do so by the Master himself. Returning from his talk with David and John, he addressed his last words to all eleven, saying: “My friends, go to your rest. Prepare

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그들에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려하자,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말했다; “너희는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사도들은 그들이 글자 그대로 기진맥진되어 잠에 떨어졌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로 그들은 잠이 부족하였다.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숙소로 가기 전에, 시몬 켈로페는 그들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갔으며, 그곳에 숨겨둔 칼들과 다른 무기들을 각자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받아들여서 몸에 지녔다. 나다니엘은 무장하기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주(主)께서 자기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자기 제자들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였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주(主)는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에게 칼을 사용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그의 막강한 힘을 보았으며, 원한다면 자신을 적으로부터 직접 보호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에 그가 적과 싸우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칼을 휘두르는 것을 싫어한다.” 안드레가 나다니엘의 말을 듣고, 자기 칼을 시몬 켈로페에게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아홉 명만이 무장한 채로 각자 잠자리로 흩어졌다.

유다가 배반자인 것에 대한 분노는 사도들의 마음속에 잠시 동안 다른 모든 것을 가렸다. 최후의 만찬 도중에 말씀한, 유다에 대한 주(主)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들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되었다.

여덟 명의 사도들이 마침내 각자의 막사로 돌아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주(主)의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서 있는 동안, 예수는 다윗 세베데에게 “너의 메신저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믿을만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다윗이 한 때 예루살렘과 벳세다를 오가며 야간 메신저 봉사를 하였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는 그에게 지시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너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主)께서 당신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고 말씀 하십니다. 그를 죽일 적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잠시 나타나실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선생이 당신의 가슴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오는 때로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主)가 만족하실 만큼 야곱이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게 되자, 예수는 그를 보내시면서 말했다; “야곱아, 누가 네게 무슨 말을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밤 동안 보이지 아니하는 메신저가 네 옆에서 같이 달려갈 것이다.”

yourselves for the work of tomorrow. Remember, we should all submit ourselves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My peace I leave with you.” And having thus spoken, he motioned them to their tents, but as they went, he called to Peter, James, and John, saying, “I desire that you remain with me for a little while.”

182:2.3 (1966.3) The apostles fell asleep only because they were literally exhausted; they had been running short on sleep ever since their arrival in Jerusalem. Before they went to their separate sleeping quarters, Simon Zelotes led them all over to his tent, where were stored the swords and other arms, and supplied each of them with this fighting equipment. All of them received these arms and girded themselves therewith except Nathaniel. Nathaniel, in refusing to arm himself, said: “My brethren, the Master has repeatedly told us that his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and that his disciples should not fight with the sword to bring about its establishment. I believe this; I do not think the Master needs to have us employ the sword in his defense. We have all seen his mighty power and know that he could defend himself against his enemies if he so desired. If he will not resist his enemies, it must be that such a course represents his attempt to fulfill his Father’s will. I will pray, but I will not wield the sword.” When Andrew heard Nathaniel’s speech, he handed his sword back to Simon Zelotes. And so nine of them were armed as they separated for the night.

182:2.4 (1966.4) Resentment of Judas’s being a traitor for the moment eclipsed everything else in the apostles’ minds. The Master’s comment in reference to Judas, spoken in the course of the last prayer, opened their eyes to the fact that he had forsaken them.

182:2.5 (1966.5) After the eight apostles had finally gone to their tents, and while Peter, James, and John were standing by to receive the Master’s orders, Jesus called to David Zebedee, “Send to me your most fleet and trustworthy messenger.” When David brought to the Master one Jacob, once a runner on the overnight messenger service between Jerusalem and Bethsaida, Jesus, addressing him, said: “In all haste, go to Abner at Philadelphia and say: ‘The Master sends greetings of peace to you and says that the hour has come when he will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who will put him to death, but that he will rise from the dead and appear to you shortly, before he goes to the Father, and that he will then give you guidance to the time when the new teacher shall come to live in your hearts.’” And when Jacob had rehearsed this message to the Master’s satisfaction, Jesus sent him on his way, saying: “Fear not what any man may do to you, Jacob, for this night an unseen messenger will run by your side.”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과 같이 야영을 하고 있는 그리스인 방문자들의 우두머리를 향하고 말했다; “나의 형제여,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니 곧 일어나게 될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의 적들, 우두머리 사제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의 선동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주(主)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개인적 인사를 드렸지만, 이 날 저녁에 그들은 유다의 이탈이 갑작스럽게 실현된 것에 너무 몰두했고 주(主)의 고별 기도에서의 비범한 본성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들은 그의 작별 인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예수는 그 날 밤 자기 곁을 떠나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안드레야, 내가 이 잔을 마신 후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형제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어라. 네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그 밤에 특별한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악의 일에 대비해야 했기에 잠을 청하였다. 유월절 준비일의 정오 이후에는 어떤 세상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사제들이 주(主)를 체포하려고 아침 일찍 찾아나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예수의 적들이 유다와 함께 그 한밤중에 오리라는 것을, 오직 다윗 세배대와 요한 마가만이 알고 있었다.

다윗은 그 날 밤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로 통하는 오솔길 위쪽에 파수병을 세워 두었으며, 그 동안 요한 마가는 기드온 옆에서 갯세마네로 올라오는 길을 감시하였다. 다윗은 자아-부과된 외곽 보초 과업을 위해 나가기 전에 예수께 작별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다; “주(主)여, 당신과 함께 한 저의 봉사를 수행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 형제들이 당신의 사도이지만, 저는 꼭 해야 할 작은 일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당신이 가시면 진심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 애야,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지도 받은 일들을 하였지만, 네가 했던 이 봉사는 자진해서 한 것이었고, 나는 너의 헌신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너도 역시 언젠가는 나와 함께 영원한 왕국에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위쪽 오솔길로 감시하러 떠나면서 예수께 말했다; “저, 주(主)여, 제가 당신 가족에게 메신저를 보냈었는데, 오늘밤에 여리고에 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올라 오기에는 길이 험악하여 위험할 것이므로 내일 오전 일찍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을 내려다보시며 오직 “다윗아, 그렇게 해

182:2.6 (1967.1) Then Jesus turned to the chief of the visiting Greeks who were encamped with them, and said: “My brother, be not disturbed by what is about to take place since I have already forewarned you. The Son of Man will be put to death at the instigation of his enemies,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Jews, but I will rise to be with you a short time before I go to the Father. And when you have seen all this come to pass, glorify God and strengthen your brethren.”

182:2.7 (1967.2) In ordinary circumstances the apostles would have bidden the Master a personal good night, but this evening they were so preoccupied with the sudden realization of Judas's desertion and so overcome by the unusual nature of the Master's farewell prayer that they listened to his good-bye salutation and went away in silence.

182:2.8 (1967.3) Jesus did say this to Andrew as he left his side that night: “Andrew, do what you can to keep your brethren together until I come again to you after I have drunk this cup. Strengthen your brethren, seeing that I have already told you all. Peace be with you.”

182:2.9 (1967.4) None of the apostles expected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to happen that night since it was already so late. They sought sleep that they might ri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be prepared for the worst. They thought that the chief priests would seek to apprehend their Master early in the morning as no secular work was ever done after noon on the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Only David Zebedee and John Mark understood that the enemies of Jesus were coming with Judas that very night.

182:2.10 (1967.5) David had arranged to stand guard that night on the upper trail which led to the Bethany-Jerusalem road, while John Mark was to watch along the road coming up by the Kidron to Gethsemane. Before David went to his self-imposed task of outpost duty, he bade farewell to Jesus, saying: “Master, I have had great joy in my service with you. My brothers are your apostles, but I have delighted to do the lesser things as they should be done, and I shall miss you with all my heart when you are gone.” And then said Jesus to David: “David, my son, others have done that which they were directed to do, but this service have you done of your own heart, and I have not been unmindful of your devotion. You, too, shall some day serve with me in the eternal kingdom.”

182:2.11 (1967.6) And then, as he prepared to go on watch by the upper trail, David said to Jesus: “You know, Master, I sent for your family, and I have word by a messenger that they are tonight in Jericho. They will be here early tomorrow forenoon since it would be dangerous for them to come up the bloody way by night.” And Jesus, looking down

라.”라고 말씀하였다.

다윗이 올리브 산을 올라갔을 때,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쪽으로 흐르는 개울 옆 길 가까이에 서 땅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이곳에 계속 남아있어야 했으나, 예수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그의 커다란 욕망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떠난 후 얼마 안 되어서, 요한 마가는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가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는 헌신과 호기심이 뒤섞이는 것을 가누지 못하여 파수자인 자기 자리를 떠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유다와 무장한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타나기 전에 그 정원에서 마지막 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다.

주(主)의 야영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 대장과 의논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그 배반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이미 부하들을 모아 출동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었다.

제 3 장. 겟세마네에서 홀로 계심

야영지 둘레에서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진 후에, 예수는 전에 종종 올라가 기도하고 교통하던 근처 골짜기 조금 위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세 사도들이 그가 무척 침울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주(主)가 그토록 무거움에 쌓이고 슬픔에 잠긴 것을 전에는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헌신기도의 장소에 도착하자, 주(主)는 세 사람에게 앉아서 자신과 함께 지켜보라고 명하였고, 한편 그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기도하러 가 버렸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 “나의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육신에서의 이 생명을 버릴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으며, 그로부터 움츠러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생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죽음에서도 당신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주(主)는 기도하는 자세로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세 사도들에게로 가셨으며, 그들의 눈이 무거워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가 그들을 깨우며 말했다; “도대체!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지켜볼 수 없겠느냐? 내 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도 슬픔에 차있고, 내가 너희의 동행자관계를 간청하고 있음을 너희가 볼 수 없다는 말이나?” 세 사람이 잠깐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 주(主)는 홀로 떨어진 곳으로 갔고 땅에 엎드려 다시 기도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가능 합니다—그러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으며, 이것이 쓴 잔이기는 해도,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느 막강한 천사

upon David, only said: “Let it be so, David.”

182:2.12 (1967.7) When David had gone up Olivet, John Mark took up his vigil near the road which ran by the brook down to Jerusalem. And John would have remained at this post but for his great desire to be near Jesus and to know what was going on. Shortly after David left him, and when John Mark observed Jesus withdraw, with Peter, James, and John, into a near-by ravine, he was so overcome with combined devotion and curiosity that he forsook his sentinel post and followed after them, hiding himself in the bushes, from which place he saw and overheard all that transpired during those last moments in the garden and just before Judas and the armed guards appeared to arrest Jesus.

182:2.13 (1968.1) While all this was in progress at the Master's camp, Judas Iscariot was in conference with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who had assembled his men preparatory to setting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betrayer, to arrest Jesus.

3. ALONE IN GETHSEMANE

182:3.1 (1968.2) After all was still and quiet about the camp, Jesus, taking Peter, James, and John, went a short way up a near-by ravine where he had often before gone to pray and commune. The three apostles could not help recognizing that he was grievously oppressed; never before had they observed their Master to be so heavy-laden and sorrowful. When they arrived at the place of his devotions, he bade the three sit down and watch with him while he went off about a stone's throw to pray. And when he had fallen down on his face, he prayed: “My Father, I came into this world to do your will, and so have I. I know that the hour has come to lay down this life in the flesh, and I do not shrink therefrom, but I would know that it is your will that I drink this cup. Send me the assurance that I will please you in my death even as I have in my life.”

182:3.2 (1968.3) The Master remained in a prayerful attitude for a few moments, and then, going over to the three apostles, he found them sound asleep, for their eyes were heavy and they could not remain awake. As Jesus awoke them, he said: “What! can you not watch with me even for one hour? Cannot you see that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even to death, and that I crave your companionship?” After the three had aroused from their slumber, the Master again went apart by himself and, falling down on the ground, again prayed: “Father, I know it is possible to avoid this cup —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you — but I have come to do your will, and while this is a bitter cup, I would drink it if it is your will.” And when he

가 그의 옆으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며 그에게 닿으며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

예수가 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금방 잠에 빠진 그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지켜보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간에—더우기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너희에게 필요한데—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 잠에 빠지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主)는 따로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잠들어 있는 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영은 참으로 하고자 하나, 육신은 연약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잠시 동안 땅 위에 엎드려 계셨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들을 살펴보고 측은히 여기는 손짓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라; 결정의 순간이 지나갔다. 사람의 아들이 적에게 팔리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시고 말했다; “일어나라, 야영지로 돌아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며, 나의 양떼들이 흩어질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예수가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지내신 지난 수 년 동안, 정말로 그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많은 확증들을 가졌지만, 이 순간에 그들은 그의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보게 되었다. 그의 신성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 그의 부활 바로 직전에, 그의 필사자 본성의 가장 큰 증거들인 그의 굴욕과 십자가 처형이 이제 피할 수 없게 오고 있었다.

그 정원에서 기도하던 때 순간마다 그의 인간성은 그의 신성 위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확립하였다; 그의 인간 의지는 더욱 완벽하게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와 하나가 되어 갔다. 막강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시간의 실존에서 영원의 진보 과정에서 물질적 괴멸을 격어야만 하는 것같이 그의 아들도 죽음의 창조체적 체험을 통하여 그의 이 땅에서의 증여를 완결하기를 원한다는 전갈이 있었다.

이른 저녁때까지만 해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들을 쉬도록 그들을 보냈을 때, 시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예수는 모든 인간 체험 속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의 밀물과 썰물을 체험하였으며, 이 때 그는 일에 지친 상태였는데, 오랫동안의 격렬한 수고와 사도들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염려로 인하여 기진맥진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육신화하신 하느님 아들이

had thus prayed, a mighty angel came down by his side and, speaking to him, touched him and strengthened him.

182:3.3 (1968.4) When Jesus returned to speak with the three apostles, he again found them fast asleep. He awakened them, saying: “In such an hour I need that you should watch and pray with me — all the more do you need to pray that you enter not into temptation — wherefore do you fall asleep when I leave you?”

182:3.4 (1968.5) And then, for a third time, the Master withdrew and prayed: “Father, you see my sleeping apostles; have mercy upon them. The spirit is indeed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And now, O Father, if this cup may not pass, then would I drink i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And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he lay for a moment prostrate on the ground. When he arose and went back to his apostles, once more he found them asleep. He surveyed them and, with a pitying gesture, tenderly said: “Sleep on now and take your rest; the time of decision is past. The hour is now upon us wherein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As he reached down to shake them that he might awaken them, he said: “Arise, let us be going back to the camp, for, behold, he who betrays me is at hand, and the hour has come when my flock shall be scattered. But I have already told you about these things.”

182:3.5 (1968.6) During the years that Jesus lived among his followers, they did, indeed, have much proof of his divine nature, but just now are they about to witness new evidences of his humanity. Just before the greatest of all the revelations of his divinity, his resurrection, must now come the greatest proofs of his mortal nature, his humiliation and crucifixion.

182:3.6 (1969.1) Each time he prayed in the garden, his humanity laid a firmer faith-hold upon his divinity; his human will more completely became one with the divine will of his Father. Among other words spoken to him by the mighty angel was the message that the Father desired his Son to finish his earth bestowal by passing through the creature experience of death just as all mortal creatures must experience material dissolution in passing from the existence of time into the progression of eternity.

182:3.7 (1969.2) Earlier in the evening it had not seemed so difficult to drink the cup, but as the human Jesus bade farewell to his apostles and sent them to their rest, the trial grew more appalling. Jesus experienced that natural ebb and flow of feeling which is common to all human experience, and just now he was weary from work, exhausted from the long hours of strenuous labor and painful anxiety concerning the safety of his

의 생각과 느낌을 납득할 것같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필사자도 없겠지만, 그의 얼굴에 크게 흘러내린 땀방울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크게 고뇌하였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방법대로 자연적인 사건들이 순리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려 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한 우주의 최극 우두머리로서의 주권적 힘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충분히 결심하였다.

광대한 창조체의 집합된 무리들이 예수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와 가브리엘의 과도기 합동 명령에 따라 이제 이 장면 위를 뒤덮게 되었다 이들 군대들의 부서별 지휘관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개입할 것을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땅에서의 이 진행 과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있었다.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 가슴에 아주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사랑의 슬픔이 그를 압박하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아셨으며, 그들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잘 아셨지만, 그의 인간 가슴은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정당한 큰길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탈출구를 찾았으며 실패하자, 잔을 기꺼이 드시려고 하였다. 미가엘의 신성한 마음은 열 두 사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가슴은 그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기 전에 무슨 일이든 더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으며; 그는 진실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그는 육친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 중 하나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부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하였다. 그의 혼은 좌절된 사랑과 거부된 자비로 인하여 고뇌하였다. 모든 것들이 짓누르는 학대와 극심한 고통으로 압도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무서운 인간의 순간들 중에 하나이었다.

예수의 인간성이 사적인 외로움, 대중 앞에서 겪는 치욕감, 그리고 그의 운동에서의 실패의 출현에 대한 이런 상황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든 정서들은 표현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이 큰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로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명활동으로 돌아갔다. 이 커다란 시련의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초기 사명활동의 많은 즐거운 장면들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인간 가슴을 강하게 하고 곧 자기를 배반할 반역자와 마주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 산, 그리고 빛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었다.

apostles. While no mortal can presume to understan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carnate Son of God at such a time as this, we know that he endured great anguish and suffered untold sorrow, for the perspiration rolled off his face in great drops. He was at last convinced that the Father intended to allow natural events to take their course; he was fully determined to employ none of his sovereign power as the supreme head of a universe to save himself.

182:3.8 (1969.3) The assembled hosts of a vast creation are now hovered over this scene under the transient joint command of Gabriel and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The division commanders of these armies of heaven have repeatedly been warned not to interfere with these transactions on earth unless Jesus himself should order them to intervene.

182:3.9 (1969.4) The experience of parting with the apostles was a great strain on the human heart of Jesus; this sorrow of love bore down on him and made it more difficult to face such a death as he well knew awaited him. He realized how weak and how ignorant his apostles were, and he dreaded to leave them. He well knew that the time of his departure had come, but his human heart longed to find out whether there might not possibly be some legitimate avenue of escape from this terrible plight of suffering and sorrow. And when it had thus sought escape, and failed, it was willing to drink the cup. The divine mind of Michael knew he had done his best for the twelve apostles; but the human heart of Jesus wished that more might have been done for them before they should be left alone in the world. Jesus' heart was being crushed; he truly loved his brethren. He was isolated from his family in the flesh; one of his chosen associates was betraying him. His father Joseph's people had rejected him and thereby sealed their doom as a people with a special mission on earth. His soul was tortured by baffled love and rejected mercy. It was just one of those awful human moments when everything seems to bear down with crushing cruelty and terrible agony.

182:3.10 (1969.5) Jesus' humanity was not insensible to this situation of private loneliness, public shame, and the appearance of the failure of his cause. All these sentiments bore down on him with indescribable heaviness. In this great sorrow his mind went back to the days of his childhood in Nazareth and to his early work in Galilee. At the time of this great trial there came up in his mind many of those pleasant scenes of his earthly ministry. And it was from these old memories of Nazareth, Capernaum, Mount Hermon, and of the sunrise and sunset on the shimmering Sea of Galilee, that he soothed himself as he made his human heart strong and ready to encounter the traitor who should so soon betray him.

유다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主)는 자신의 평상시 안정을 되찾았다; 영이 육신을 이기게 되었고;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즐기는 모든 인간 경향에 대하여 신앙이 승리하였다. 인간 본성의 충분한 실현에 대한 최극의 시험이 치러졌고 만족스럽게 통과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봉헌된 필사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충분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번 더 하였던 것이다.

182:3.11 (1969.6) Before Judas and the soldiers arrived, the Master had fully regained his customary poise; the spirit had triumphed over the flesh; faith had asserted itself over all human tendencies to fear or entertain doubt. The supreme test of the full realization of the human nature had been met and acceptably passed. Once more the Son of Man was prepared to face his enemies with equanimity and in the full assurance of his invincibility as a mortal man unreservedly dedicated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제 183 편 배반과 예수의 체포

⇨ 182

유랜시아 책

18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3 편 배반과 예수의 체포

색션

소개

제 1 장. 아버지의 뜻

제 2 장. 성(城)안에서의 유다

제 3 장. 주(主)가 체포되심

제 4 장. 올리브유 즙 틀 근처에서의 의논

제 5 장.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소개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마치 막으로 깨우신 후에,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 텐트로 돌아가 잠을 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 사도들은 이 때 흔히 잠이 깨었다; 잠깐 졸았던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고, 그 외에도, 흥분된 두 사람의 메신저들이 다윗 세베대에 관하여 묻고 베드로가 그의 감시 초소 위치를 알려주자 재빨리 그를 찾아 달려가는 광경이 벌어짐으로써 자극을 받아 잠이 깨었다.

비록 여덟 명의 사도들이 깊이 잠들었지만, 그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재난을 더욱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위험이 닥칠 경우에 깨울 수 있도록 파수자를 세워 두었다. 두 메신저가 급히 야영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 그리스인 보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두 깨웠으며, 그들은 충분하게 무장을 하고 각자의 막사에서 몰려 나왔다. 이제 여덟 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야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부르려 하였으나 예수가 강력하게 금지하였다. 주(主)는 그들 모두에게 각자 막사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그의 제안에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주(主)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해산시키지

PAPER 183

THE BETRAYAL AND ARREST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Father's Will

2. Judas in the City

3. The Master's Arrest

4. Discussion at the Olive Press

5.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Palace

INTRODUCTION

183:0.1 (1971.1) AFTER Jesus had finally awakened Peter, James, and John, he suggested that they go to their tents and seek sleep in preparation for the duties of the morrow. But by this time the three apostles were wide awake; they had been refreshed by their short naps, and besides, they were stimulated and aroused by the arrival on the scene of two excited messengers who inquired for David Zebedee and quickly went in quest of him when Peter informed them where he kept watch.

183:0.2 (1971.2) Although eight of the apostles were sound asleep, the Greeks who were encamped alongside them were more fearful of trouble, so much so that they had posted a sentinel to give the alarm in case danger should arise. When these two messengers hurried into camp, the Greek sentinel proceeded to arouse all of his fellow countrymen, who streamed forth from their tents, fully dressed and fully armed. All the camp was now aroused except the eight apostles. Peter desired to call his associates, but Jesus definitely forbade him. The Master mildly admonished them all to return to their tents, but they were reluctant to comply with his suggestion.

183:0.3 (1971.3) Failing to disperse his followers, the

못하고, 그들을 떠나 겟세마네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올리브유 즙 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 세 명의 사도들과 그리스인들 그리고 야영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를 따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지만, 요한 마가는 급히 일어나 올리브 나무들 속으로 돌아 내려가 올리브유 즙 틀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었다. 예수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이 도착하였을 때 사도들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야영지와 자기 친구들로부터 떠났던 것이다. 주(主)는 사도들이 깨어 있다가, 자신이 잡힐 때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장면에서 심한 증오심이 발동되어 병사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체포되지는 않을까 하여 심히 염려하였다. 그들이 함께 붙잡히면 자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죽이려는 계획이 유대인 통치자들 회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악한 음모들이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칼리가스티아로부터 충만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아셨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반역자들이 자신과 함께 사도들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

예수는 올리브유 즙틀 위에 홀로 앉아 있었고, 거기에서 그 반역자가 오기를 기다리셨으며,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오직 요한 마가와 수많은 천상의 관찰자들만이 지켜보았다.

Master left them and walked down toward the olive press near the entrance to Gethsemane Park. Although the three apostles, the Greeks,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camp hesitated immediately to follow him, John Mark hastened around through the olive trees and secreted himself in a small shed near the olive press. Jesus withdrew from the camp and from his friends in order that his apprehenders, when they arrived, might arrest him without disturbing his apostles. The Master feared to have his apostles awake and present at the time of his arrest lest the spectacle of Judas's betraying him should so arouse their animosity that they would offer resistance to the soldiers and would be taken into custody with him. He feared that, if they should be arrested with him, they might also perish with him.

183:0.4 (1971.4) Though Jesus knew that the plan for his death had its origin in the councils of the rulers of the Jews, he was also aware that all such nefarious schemes had the full approval of Lucifer, Satan, and Caligastia. And he well knew that these rebels of the realms would also be pleased to see all of the apostles destroyed with him.

183:0.5 (1971.5) Jesus sat down, alone, on the olive press, where he awaited the coming of the betrayer, and he was seen at this time only by John Mark and an innumerable host of celestial observers.

제 1 장. 아버지의 뜻

주(主)가 육신으로의 삶을 마치시는 것과 연관된 많은 사건들과 말들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 무지한 하인들과 냉담한 병사들에 의한 예수에 대한 잔인한 대접, 그의 재판에서의 부당한 수행, 그리고 종교 영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무감각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예수가 이들 모든 고통과 치욕을 참을성 있게 복종하였다는 사실과, 그가 그러면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참되게 행하고 계셨던 것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신의 아들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필사자 체험의 가득 찬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 정말로 진실이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주(主)를 그토록 혹독하게 고문하고 그의 무저항의 개인에 그토록 끔찍하게 마구 계속 이어서 경멸하는 자칭 문명인이라는 존재들의 잔인한 행동을 조장시킬만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필사자 일생에서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예수가 겪으셔야 했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이 체험들은 결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일부분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그의 지친 사도들이 육체적 피로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정원에서 드렸던 승리를 거둔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하느님께 최중적으로 복종하는 순간, 그의 인간 본성이 그렇게 하기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맹세한 것이었다.

1. THE FATHER'S WILL

183:1.1 (1971.6) There is great danger of misunderstanding the meaning of numerous sayings and many events associat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Master's career in the flesh. The cruel treatment of Jesus by the ignorant servants and the calloused soldiers, the unfair conduct of his trials, and the unfeeling attitude of the professed religious leaders,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fact that Jesus, in patiently submitting to all this suffering and humiliation, was truly doing the will of the Father in Paradise. It was, indeed and in truth, the will of the Father that his Son should drink to the full the cup of mortal experience, from birth to death, but the Father in heaven had nothing whatever to do with instigating the barbarous behavior of those supposedly civilized human beings who so brutally tortured the Master and so horribly heaped successive indignities upon his nonresisting person. These inhuman and shocking experiences which Jesus was called upon to endure in the final hours of his mortal life were not in any sense a part of the divine will of the Father, which his human nature had so triumphantly pledged to carry out at the time of the final surrender of man to God as signified in the threefold prayer which he indited in the garden while his weary apostles slept the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필사자들이 땅에서의 육신으로의 생애를 완결하는 것과 똑같이, 증여된 아들도 세상에서의 일생을 자연스럽게 완결하기를 원하였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은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잇따라 일어나는 죽음의 에피소드를 특별한 섭리로서 쉽게 맞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방법으로 육신에서의 그의 생명을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의 믿을 수 없는 굴욕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향하여 끔찍한 확실성으로 밀려들었던 비인간적 사건들의 사악한 음모의 잔인한 마수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놀라운 증오의 현시활동과 전례 없는 잔인성 실증의 모든 것은 악한 사람들과 사악한 필사자들이 꾸민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으며, 예수의 적들은 사탄들도 그것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생각이 없고 악한 필사자들이 증여된 아들을 그렇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보증하였다. 죄의 아버지조차도 십자가형 장면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sleep of physical exhaustion.

183:1.2 (1972.1) The Father in heaven desired the bestowal Son to finish his earth career *naturally*, just as all mortals must finish up their lives on earth and in the flesh. Ordinary men and women cannot expect to have their last hours on earth and the supervening episode of death made easy by a special dispensation. Accordingly, Jesus elected to lay down his life in the flesh in the manner which was in keeping with the outworking of natural events, and he steadfastly refused to extricate himself from the cruel clutches of a wicked conspiracy of inhuman events which swept on with horrible certainty toward his unbelievable humiliation and ignominious death. And every bit of all this astounding manifestation of hatred and this unprecedented demonstration of cruelty was the work of evil men and wicked mortals. God in heaven did not will it, neither did the archenemies of Jesus dictate it, though they did much to insure that unthinking and evil mortals would thus reject the bestowal Son. Even the father of sin turned his face away from the excruciating horror of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제 2 장. 성(城)안에서의 유다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는 동안 갑자기 식탁을 떠난 유다는 그 후에 곧바로 자기 사촌의 집으로 갔으며, 그 둘은 바로 성전 경비 대장에게로 갔다. 유다는 그 대장에게 경비병들을 모을 것을 요청하고 예수께로 그들을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직도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다가 예상한 마가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일이 조금 지체된 것은, 유다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그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이었다. 주(主)와 열 한 사도들은, 그 배반자와 경비병들이 도착하기 15분전에 이미 엘리야 마가의 집을 떠났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할 무렵, 예수와 열 한 사도들은 성벽 밖에 있으며 올리브 산 야영지로 가고 있었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 단지 두 사람만이 저항을 위하여 무장하고 있었던, 그 열 한 명의 사도들 중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크게 당황하였다. 그는 우연히, 그들이 오후에 야영지를 떠났을 때, 오직 시몬 베드로와 시몬 켈로페만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다는 도시가 조용하고 반향할 기회가 거의 없을 때 예수를 붙잡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역자는 만일 그들이 야영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60명이 넘는 헌신적인 제자들이 합세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으며, 시몬 켈로페가 자기 수중에 많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유다는 열 한 명의 충성된 사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증오하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점차 겁을 먹게 되었으며, 그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고 하리라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는 불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겁쟁이었다.

2. JUDAS IN THE CITY

183:2.1 (1972.2) After Judas so abruptly left the table while eating the Last Supper, he went directly to the home of his cousin, and then did the two go straight to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Judas requested the captain to assemble the guards and informed him that he was ready to lead them to Jesus. Judas having appeared on the scene a little before he was expected, there was some delay in getting started for the Mark home, where Judas expected to find Jesus still visiting with the apostles. The Master and the eleven left the home of Elijah Mark fully fifteen minutes before the betrayer and the guards arrived. By the time the apprehenders reached the Mark home, Jesus and the eleven were well outside the walls of the city and on their way to the Olivet camp.

183:2.2 (1972.3) Judas was much perturbed by this failure to find Jesus at the Mark residence and in the company of eleven men, only two of whom were armed for resistance. He happened to know that, in the afternoon when they had left camp, only Simon Peter and Simon Zelotes were girded with swords; Judas had hoped to take Jesus when the city was quiet, and when there was little chance of resistance. The betrayer feared that, if he waited for them to return to their camp, more than threescore of devoted disciples would be encountered, and he also knew that Simon Zelotes had an ample store of arms in his possession. Judas was becoming increasingly nervous as he meditated how the eleven loyal apostles would detest him, and he feared they

다락방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다는 경비 대장에게 성전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였다. 이 때 통치자들은 그 배반자와의 흥정에 의하여 예수가 그 날 밤중까지는 체포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예수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는 이미 예수를 놓쳤다는 것과, 겟세마네에 가서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연관-동료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때 그 배반자는, 60명이 넘는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그와 함께 야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가 항상 무저항주의를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유다에게 말하였지만,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그의 그러한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에 기댈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두려웠으므로, 40명의 무장된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기들 수하에 그만큼의 병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안토니아의 요새로 가서 병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로마 지휘관에게 요청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요청을 명백하게 거절하였으며 그들을 상급자에게 위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여, 무장된 로마 병사들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하여 결국 빌라도에게 갈 때까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가면서 한 시간 이상이 소모되었다. 그들이 빌라도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으며, 그는 이미 아내와 함께 사택으로 퇴근한 후였다. 그는 그 계획에 개입되기를 꺼렸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산헤드린의 최고 감독이 와서 협조해 달라고 개인적 요청을 하였으므로. 총독은 나중에 그들이 떠넘기려고 때어놓을지도 모를 그 어떤 그릇된 일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하여, 가룟 유다가 성전을 출발한 것은 11시 반경이었으며, 60 명 이상—성전 경비병,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통치자들의 호기심 많은 하인들—이 그를 따라갔다.

제 3 장. 주(主)가 체포되심

무장된 군인들과 경비병들 부대가 등과 횃불을 들고 공원으로 갈 때, 유다는 예수를 재빨리 정체성을 확인하여, 그의 연관-동료들이 방어하려고 모이기 전에, 체포하러 온 자들이 먼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열보다 조금 앞에서 걸었다. 그리고 유다가 주(主)의 적들 앞에서 가기로 결정한 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가 병사들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사도들과 예수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바

would all seek to destroy him. He was not only disloyal, but he was a real coward at heart.

183:2.3 (1973.1) When they failed to find Jesus in the upper chamber, Judas asked the captain of the guard to return to the temple. By this time the rulers had begun to assemble at the high priest's home preparatory to receiving Jesus, seeing that their bargain with the traitor called for Jesus' arrest by midnight of that day. Judas explained to his associates that they had missed Jesus at the Mark home,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go to Gethsemane to arrest him. The betrayer then went on to state that more than threescore devoted followers were encamped with him, and that they were all well armed. The rulers of the Jews reminded Judas that Jesus had always preached nonresistance, but Judas replied that they could not depend upon all Jesus' followers obeying such teaching. He really feared for himself and therefore made bold to ask for a company of forty armed soldiers. Since the Jewish authorities had no such force of armed men under their jurisdiction, they went at once to the fortress of Antonia and requested the Roman commander to give them this guard; but when he learned that they intended to arrest Jesus, he promptly refused to accede to their request and referred them to his superior officer. In this way more than an hour was consumed in going from one authority to another until they finally were compelled to go to Pilate himself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to employ the armed Roman guards. It was late when they arrived at Pilate's house, and he had retired to his private chambers with his wife. He hesitat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enterprise, all the more so since his wife had asked him not to grant the request. But inasmuch as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Jewish Sanhedrin was present and making personal request for this assistance, the governor thought it wise to grant the petition, thinking he could later on right any wrong they might be disposed to commit.

183:2.4 (1973.2) Accordingly, when Judas Iscariot started out from the temple, about half after eleven o'clock, he was accompanied by more than sixty persons — temple guards, Roman soldiers, and curious servants of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3. THE MASTER'S ARREST

183:3.1 (1973.3) As this company of armed soldiers and guards, carrying torches and lanterns, approached the garden, Judas stepped well out in front of the band that he might be ready quickly to identify Jesus so that the apprehenders could easily lay hands on him before his associates could rally to his defense. And there was yet another reason why Judas chose to be ahead of the Master's enemies: He thought it would appear

로 따라온 무장한 경비병과 그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유다는 마치 체포하려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급히 오는 것처럼 보일 생각조차 하고 있었지만, 배반자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예수의 인사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주(主)는 유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였지만, 그는 배반자로서 그에게 인사하였던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같이 야영하던 약 30명가량의 사람들은, 횃불을 든 무장한 부대가 언덕의 언저리를 돌아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는 군인들인 것을 알고, 주(主)가 달빛 속에 쓸쓸히 앉아 계시는 올리브유 즙 틀 근처로 달려 내려갔다. 군인들 무리가 언덕 한쪽에 도착하였을 때, 세 명의 사도들과 연관-동료들도 언덕 반대쪽에 당도하였다. 유다가 주(主)께 말을 걸기 위하여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주(主)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무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유다는 그의 이마에 반역의 입맞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비병들을 갯세마네로 안내한 후에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예수를 지목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실행하고 나서, 그곳을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그 배반자의 바램이었다. 유다는 사도들이 모두 나타나서,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자기가 감히 배반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을 무척 염려하였다. 그러나 주(主)께서 유다를 배반자로서 맞이하자, 그는 너무 혼동이 되어서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는 유다가 그를 실제로 배반하는 것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였다, 그 배반자가 자기에게 당도하기 전에, 그는 한 옆으로 걸어가서,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왼쪽 첫 번째 군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대장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즉시 그 장교 앞으로 가서서, 이 모든 창조의 하느님이 가지시는 평온한 장엄으로 그곳에서 신 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였다. 무장한 이 군인들 대부분은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고, 나머지들도 그가 베푸신 기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듣자, 앞줄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가 평온하고 장엄하게 정체성을 밝히는데 대해서 크게 놀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을 위한 자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主)의 적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으며, 그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배반자는 무장한 군대와 함께 나타난 자신의 현존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거기에다가 그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에게 푸짐하게 수여될 큰 상과 명예에 걸맞게 하기 위하여, 유대 통치자와의 배반 흥정에 대한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

that he had arrived on the scene ahead of the soldiers so that the apostles and others gathered about Jesus might not directly connect him with the armed guards following so closely upon his heels. Judas had even thought to pose as having hastened out to warn them of the coming of the apprehenders, but this plan was thwarted by Jesus' blighting greeting of the betrayer. Though the Master spoke to Judas kindly, he greeted him as a traitor.

183:3.2 (1973.4) As soon as Peter, James, and John, with some thirty of their fellow campers, saw the armed band with torches swing around the brow of the hill, they knew that these soldiers were coming to arrest Jesus, and they all rushed down to near the olive press where the Master was sitting in moonlit solitude. As the company of soldiers approached on one side, the thre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approached on the other. As Judas strode forward to accost the Master, there the two groups stood, motionless, with the Master between them and Judas making ready to impress the traitorous kiss upon his brow.

183:3.3 (1974.1) It had been the hope of the betrayer that he could, after leading the guards to Gethsemane, simply point Jesus out to the soldiers, or at most carry out the promise to greet him with a kiss, and then quickly retire from the scene. Judas greatly feared that the apostles would all be present, and that they would concentrate their attack upon him in retribution for his daring to betray their beloved teacher. But when the Master greeted him as a betrayer, he was so confused that he made no attempt to flee.

183:3.4 (1974.2) Jesus made one last effort to save Judas from actually betraying him in that, before the traitor could reach him, he stepped to one side and, addressing the foremost soldier on the left, the captain of the Romans, said, “Whom do you seek?” The captain answered, “Jesus of Nazareth.” Then Jesus stepped up immediately in front of the officer and, standing there in the calm majesty of the God of all this creation, said, “I am he.” Many of this armed band had heard Jesus teach in the temple, others had learned about his mighty works, and when they heard him thus boldly announce his identity, those in the front ranks fell suddenly backward. They were overcome with surprise at his calm and majestic announcement of identity. There was, therefore, no need for Judas to go on with his plan of betrayal. The Master had boldly revealed himself to his enemies, and they could have taken him without Judas's assistance. But the traitor had to do something to account for his presence with this armed band, and besides, he wanted to make a show of carrying out his part of the betrayal bargain with the rulers of the Jews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great reward and honors which he believed would be heaped upon him in

었다.

예수의 모습과 특별한 그의 음성 때문에 처음에 뒤로 물러났던 경비병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주(主)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하면서 주(主)를 포옹하자, 예수가 말하기를, “친구여, 이렇게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냐!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려고 까지 하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하였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는 유다의 배반적인 포옹에서 벗어나 경비병과 군인들 쪽으로 걸어가 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다. 대장은 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게 하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준비가 되어있다.”

예수는 경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준비가 되었으며, 그 군인들의 지도관은 세명의 사도들과 연관-동료들이 평안히 돌아가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예수가 그 지도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계실 때, 대제사장 시리아인 호위병 말고가 예수 앞으로 나왔으며, 로마인 지도관이 예수를 그렇게 묶으라고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였다. 주(主)가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려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의 연관-동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고를 죽이려고 달려 나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나서기 전에, 예수는 손을 들어 베드로를 말리시고, 엄하게 꾸짖으시며 말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고 싶어 하는, 열 두 군단이 넘는 천사와 그 연관-동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의 물리적인 저항을 효과적으로 정지시키셨지만, 그것이 경비병의 대장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는 곧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견고하게 붙잡고 신속하게 그를 묶었다. 두꺼운 줄로 그의 손을 묶자,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배척하러 나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가 묶였을 때, 그 지휘관은 주(主)의 추종자들이 그를 구하려고 대들 것을 염려하여, 그들

compensation for his promise to deliver Jesus into their hands.

183:3.5 (1974.3) As the guards rallied from their first faltering at the sight of Jesus and at the sound of his unusual voice, and as the apostles and disciples drew nearer, Judas stepped up to Jesus and, placing a kiss upon his brow, said, “Hail, Master and Teacher.” And as Judas thus embraced his Master, Jesus said, “Friend, is it not enough to do this! Would you even betray the Son of Man with a kiss?”

183:3.6 (1974.4) The apostles and disciples were literally stunned by what they saw. For a moment no one moved. Then Jesus, disengaging himself from the traitorous embrace of Judas, stepped up to the guards and soldiers and again asked, “Whom do you seek?” And again the captain said, “Jesus of Nazareth.” And again answered Jesus: “I have told you that I am he. If, therefore, you seek me, let these others go their way. I am ready to go with you.”

183:3.7 (1974.5) Jesus was ready to go back to Jerusalem with the guards, and the captain of the soldiers was altogether willing to allow the three apostles and their associates to go their way in peace. But before they were able to get started, as Jesus stood there awaiting the captain's orders, one Malchus, the Syrian bodyguard of the high priest, stepped up to Jesus and made ready to bind his hands behind his back, although the Roman captain had not directed that Jesus should be thus bound. When Peter and his associates saw their Master being subjected to this indignity,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train themselves. Peter drew his sword and with the others rushed forward to smite Malchus. But before the soldiers could come to the defense of the high priest's servant, Jesus raised a forbidding hand to Peter and, speaking sternly, said: “Peter, put up your sword. They who take the sword shall perish by the sword. Do you not understand that it is the Father's will that I drink this cup? And do you not further know that I could even now command more than twelve legions of angels and their associates, who would deliver me from the hands of these few men?”

183:3.8 (1975.1) While Jesus thus effectively put a stop to this show of physical resistance by his followers, it was enough to arouse the fear of the captain of the guards, who now, with the help of his soldiers, laid heavy hands on Jesus and quickly bound him. And as they tied his hands with heavy cords, Jesus said to them: “Why do you come out against me with swords and with staves as if to seize a robber?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publicly teaching the people, and you made no effort to take me.”

183:3.9 (1975.2) When Jesus had been bound, the captain, fearing that the followers of the Master

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급히 골짜기로 달아났기 때문에, 군인들이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 요한 마가는 근처에 외파로 서있는 창고 속에서 그 동안 내내 남아 있었다. 경비병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요한 마가는 도망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창고에서 몰래 빠져 나오려고 하였지만; 그가 일어나는 순간,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외투를 걸친 이 젊은이를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거의 잡힐 뻔하였다. 그 군인은 요한 마가를 따라와서 그의 외투를 손으로 잡았지만, 그 젊은이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 군인이 빈 외투를 들고 있는 동안, 벗은 채로 도망하였다. 요한 마가는 위쪽 오솔길에 있는 다윗 세베대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갔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서둘러서 사도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돌아갔으며 여덟 명의 사도들에게 예수가 배반당하고 체포된 사실을 알렸다.

여덟 명의 사도들이 일어날 때쯤 되어서,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며, 그들은 모두 올리브유 즙 틀 근처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한편, 올리브나무 숲에 숨어있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이미 군인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하인들 무리를 뒤따라갔으며, 그들은 마치 지독한 죄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였다. 요한은 무리들 뒤에서 가까이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요한 마가는 군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막사에서 찾은 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올리브나무 과수원 담을 따라 돌아가서 그 무리들 앞으로 갔으며, 대제사장의 저택 문 입구 가까이에 숨어 있었다.

제 4 장. 올리브유 즙 틀 근처에서의 의논

야고보 세베대는 시몬 베드로와 자기 형 요한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주(主)가 체포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하여 올리브유 즙 틀에 모인, 같이 야영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였다.

안드레는 동료 사도들 전체의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났으며; 따라서, 그들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아,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잠깐 동안 비공식적인 토의가 있는 후에, 시몬 젤로페가 올리브유 즙 틀의 돌담 위에 일어서서, 주(主)와 왕국의 당위성을 위해 충성하자고 감동적으로 열변을 토하였으며, 동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속히 무리를 따라가서 예수를 구출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시몬이 말을

might attempt to rescue him, gave orders that they be seized; but the soldiers were not quick enough since, having overheard the captain's orders to arrest them, Jesus' followers fled in haste back into the ravine. All this time John Mark had remained secluded in the near-by shed. When the guards started back to Jerusalem with Jesus, John Mark attempted to steal out of the shed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fleeing apostles and disciples; but just as he emerged, one of the last of the returning soldiers who had pursued the fleeing disciples was passing near and, seeing this young man in his linen coat, gave chase, almost overtaking him. In fact, the soldier got near enough to John to lay hold upon his coat, but the young man freed himself from the garment, escaping naked while the soldier held the empty coat. John Mark made his way in all haste to David Zebedee on the upper trail. When he had told David what had happened, they both hastened back to the tents of the sleeping apostles and informed all eight of the Master's betrayal and arrest.

183:3.10 (1975.3) At about the time the eight apostles were being awakened, those who had fled up the ravine were returning, and they all gathered together near the olive press to debate what should be done. In the meantime,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who had hidden among the olive trees, had already gone on after the mob of soldiers, guards, and servants, who were now leading Jesus back to Jerusalem as they would have led a desperate criminal. John followed close behind the mob, but Peter followed afar off. After John Mark's escape from the clutch of the soldier, he provided himself with a cloak which he found in the tent of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He suspected the guards were going to take Jesus to the home of Annas, the high priest emeritus; so he skirted around through the olive orchards and was there ahead of the mob, hiding near the entrance to the gate of the high priest's palace.

4. DISCUSSION AT THE OLIVE PRESS

183:4.1 (1975.4) James Zebedee found himself separated from Simon Peter and his brother John, and so he now joined the other apostles and their fellow campers at the olive press to deliberate on what should be done in view of the Master's arrest.

183:4.2 (1975.5) Andrew had been released from all responsibility in the group management of his fellow apostles; accordingly, in this greatest of all crises in their lives, he was silent. After a short informal discussion, Simon Zelotes stood up on the stone wall of the olive press and, making an impassioned plea for loyalty to the Master and the cause of the kingdom, exhorted his fellow apostles and the other disciples to hasten on after the mob

마치자마자 나다니엘이 일어서서, 무저항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한 예수 가르침에 그들이 주의 기울이도록 충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공격적인 주동에 따라가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바로 그날 밤에 한, 자신들이 하늘왕국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때를 위하여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이러한 입장에 대한 야고보 세베대의 지시로 용기를 얻었는데, 야고보는 이 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령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마태와 빌립도 한 마디 하였지만, 도마가 말하기까지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못하였는데, 그는 예수가 나사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주(主)가 친구들에게 주(主) 자신을 방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 적들을 좌절시키는 그의 신성한 힘의 사용을 억제하기를 끈질기게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도마는 다윗 세베대가 그 모임을 위해 소식을 전달하고 메신저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야영지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각자 자신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하였다. 같은 날 새벽 두 시 반 경 그 야영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오직 다윗만이 서너 명의 메신저들과 함께 남아 있었고, 다른 메신저들은 예수가 어디로 끌려 가셨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올 수 있도록 파견되었다.

다섯 명의 사도들, 나다니엘, 마태, 빌립, 그리고 쌍둥이 형제들은 벳바게와 벳다니로 가서 숨었다. 도마,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시몬 젤로페는 그 성(城)안에 들어가 숨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안나스의 집으로 따라갔다.

날이 새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낙심하여 깊은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갯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갔다.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니고데모의 집에 있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메신저를 같이 보냈다.

십자가형이 끝난 바로 그 순간까지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지도대로 항상 그의 가까이에 남아 있었으며, 시간마다 다윗의 메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원 야영지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사도들과 예수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도 바로 요한이었다.

분명히, 목자가 사로잡히고 양들은 흩어졌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수가 미리 경고하였음을 그들 모두가 어렴풋이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주(主)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다

and effect the rescue of Jesus. The majority of the company would have been disposed to follow his aggressive leadership had it not been for the advice of Nathaniel, who stood up the moment Simon had finished speaking and called their attention to Jesus' oft-repeated teachings regarding nonresistance. He further reminded them that Jesus had that very night instructed them that they should preserve their lives for the time when they should go forth into the world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the heavenly kingdom. And Nathaniel was encouraged in this stand by James Zebedee, who now told how Peter and others drew their swords to defend the Master against arrest, and that Jesus bade Simon Peter and his fellow swordsmen sheathe their blades. Matthew and Philip also made speeches, but nothing definite came of this discussion until Thomas, calling their attention to the fact that Jesus had counseled Lazarus against exposing himself to death, pointed out that they could do nothing to save their Master inasmuch as he refused to allow his friends to defend him, and since he persisted in refraining from the use of his divine powers to frustrate his human enemies. Thomas persuaded them to scatter, every man for himself, with the understanding that David Zebedee would remain at the camp to maintain a clearinghouse and messenger headquarters for the group. By half past two o'clock that morning the camp was deserted; only David remained on hand with three or four messengers, the others having been dispatched to secure information as to where Jesus had been taken, and what was going to be done with him.

183:4.3 (1976.1) Five of the apostles, Nathaniel, Matthew, Philip, and the twins, went into hiding at Bethpage and Bethany. Thomas, Andrew, James, and Simon Zelotes were hiding in the city. Simon Peter and John Zebedee followed along to the home of Annas.

183:4.4 (1976.2) Shortly after daybreak, Simon Peter wandered back to the Gethsemane camp, a dejected picture of deep despair. David sent him in charge of a messenger to join his brother, Andrew, who was at the home of Nicodemus in Jerusalem.

183:4.5 (1976.3) Until the very end of the crucifixion, John Zebedee remained, as Jesus had directed him, always near at hand, and it was he who supplied David's messengers with information from hour to hour which they carried to David at the garden camp, and which was then relayed to the hiding apostles and to Jesus' family.

183:4.6 (1976.4) Surely, the shepherd is smitten and the sheep are scattered! While they all vaguely realize that Jesus has forewarned them of this very situation, they are too severely shocked by the Master's sudden disappearance to be able to use their minds normally.

183:4.7 (1976.5)

날이 밝은 직후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떠난 후에, 예수와 육친 형제인 유다가 오직 주(主)가 이미 체포되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숨을 헐떡이며 야영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로 통하는 길로 급히 내려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를 통해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메신저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하게 될 소식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였다.

이것이 목요일 밤 이후에서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사도들과 주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와 이 세상 가족들에 관하여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그룹들과 각 사람들은 다윗 세베대가 겔세마네 야영지에 있는 그의 본부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봉사에 의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제 5 장.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그 정원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앞서서, 성전 경비병들의 유대인 지도관과 군인 부대의 로마인 지도관 사이에,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도관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라고 명하였다. 로마 군인들의 지도관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으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저택으로 예수를 호송하라고 지도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 종교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직접 안나스와 의논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로마 지도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예수의 예비 심문을 위하여 안나스의 집으로 그를 호송하였다.

유다는 그 지휘관들 곁에서 걸어가면서, 모든 말들을 듣고자 하였지만; 유대인 지휘관과 로마인 장교 둘 모두 배반자가 듣지 못하도록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의논에 끼여들지 못하였다—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를 멸시하였다.

이 때 요한 세베대는, 항상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主)의 지시를 기억하면서, 예수 가까이로 갔으며 두 지휘관 사이에서 걸어갔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보좌관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체포하여 묶어라. 그는 이 사람의 추종자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로마인 지휘관은 둘러보다가 요한을 발견하자, 그 사도를 자기 옆에서 따라오도록 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로마인 지휘관은 유대인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반자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 정원에서 보았으며, 칼을 꺼내어 우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다. 자기

183:4.1 (197.5.5) It was shortly after daylight and just after Peter had been sent to join his brother, that Jude, Jesus' brother in the flesh, arrived in the camp, almost breathless and in advance of the rest of Jesus' family, only to learn that the Master had already been placed under arrest; and he hastened back down the Jericho road to carry this information to his mother and to his brothers and sisters. David Zebedee sent word to Jesus' family, by Jude, to forgather at the house of Martha and Mary in Bethany and there await news which his messengers would regularly bring them.

183:4.8 (197.6.6) This was the situation during the last half of Thursday night and the early morning hours of Friday as regards the apostles, the chief disciples, and the earthly family of Jesus. And all these groups and individuals were kept in touch with each other by the messenger service which David Zebedee continued to operate from his headquarters at the Gethsemane camp.

5. ON THE WAY TO THE HIGH PRIEST'S PALACE

183:5.1 (197.7.1) Before they started away from the garden with Jesus, a dispute arose between the Jewish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nd the Roman captain of the company of soldiers as to where they were to take Jesus.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gave orders that he should be taken to Caiaphas, the acting high priest.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directed that Jesus be taken to the palace of Annas, the former high priest and father-in-law of Caiaphas. And this he did because the Romans were in the habit of dealing directly with Annas in all matters having to do with the enforcement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laws. And the orders of the Roman captain were obeyed; they took Jesus to the home of Annas for his preliminary examination.

183:5.2 (197.7.2) Judas marched along near the captains, overhearing all that was said, but took no part in the dispute, for neither the Jewish captain nor the Roman officer would so much as speak to the betrayer — they held him in such contempt.

183:5.3 (197.7.3) About this time John Zebedee, remembering his Master's instructions to remain always near at hand, hurried up near Jesus as he marched along between the two captains. The commander of the temple guards, seeing John come up alongside, said to his assistant: "Take this man and bind him. He is one of this fellow's followers." But when the Roman captain heard this and, looking around, saw John, he gave orders that the apostle should come over by him, and that no man should molest him. Then the Roman captain said to the Jewish captain: "This man is neither a traitor nor a coward. I saw him in

주(主)를 따라올 만큼 용감하니,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죄수든지 적어도 한 친구 이상이 법정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므로, 죄수인 자기 주(主) 옆에 이 사람이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진하는 자들 맨 뒤로 쳐져서, 안나스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혼자 걸어왔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 날 밤과 다음 날 예수가 쓰라린 체험을 하는 동안 내내, 요한 세베데가 어떻게 하여 그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유대인 종교 법정의 소송사건에 대해 관찰자가 되도록, 로마인 조연자가 지명한 어떤 지위를 그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은 요한에게 어떤 말이나 방해도 하지 못하였다. 안나스의 저택에서 예수를 성전 경비병의 지휘관에게 넘겨주면서, 그 로마인은 자기 보좌관에게 “이 죄수를 따라가서,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들이 그를 암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의 친구인 이 갈릴리인이 그의 옆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명하였을 때, 요한에게 부여된 특권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열명의 사도들이 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요한은 로마인의 보호 속에서 행동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주(主)가 돌아가신 후까지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하였다.

안나스의 저택에 도착하기까지, 예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안나스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사람의 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the garden, and he did not draw a sword to resist us. He has the courage to come forward to be with his Master, and no man shall lay hands on him. The Roman law allows that any prisoner may have at least one friend to stand with him before the judgment bar, and this man shall not be prevented from standing by the side of his Master, the prisoner.” And when Judas heard this, he was so ashamed and humiliated that he dropped back behind the marchers, coming up to the palace of Annas alone.

183:5.4 (1977.4) And this explains why John Zebedee was permitted to remain near Jesus all the way through his trying experiences this night and the next day. The Jews feared to say aught to John or to molest him in any way because he had something of the status of a Roman counselor designated to act as observer of the transactions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court. John's position of privilege was made all the more secure when, in turning Jesus over to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at the gate of Annas's palace, the Roman, addressing his assistant, said: “Go along with this prisoner and see that these Jews do not kill him without Pilate's consent. Watch that they do not assassinate him, and see that his friend, the Galilean, is permitted to stand by and observe all that goes on.” And thus was John able to be near Jesus right on up to the time of his death on the cross, though the other ten apostles were compelled to remain in hiding. John was acting under Roman protection, and the Jews dared not molest him until after the Master's death.

183:5.5 (1977.5) And all the way to the palace of Annas, Jesus opened not his mouth. From the time of his arrest to the time of his appearance before Annas, the Son of Man spoke no word.

제 184 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 183

유랜시아 책

18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4 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섹션

소개

제 1 장. 안나스의 심문

제 2 장.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제 3 장. 산헤드린 회원들의 법정 앞에서

제 4 장. 굴욕의 시간

제 5 장. 두 번째 열린 법정

PAPER 184

BEFORE THE SANHEDRIN COURT

SECTIONS

Introduction

1. Examination by Annas

2. Peter in the Courtyard

3. Before the Court of Sanhedrists

4. The Hour of Humiliation

5. The Second Meeting of the Court

소개

안나스의 대리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에게 예수를 체포한 후에 안나스의 저택으로 그를 즉시 데려오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었다.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는 유대인의 우두머리 종교 권한자로서 자신의 위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예수를 자기 집에 몇 시간 동안 억류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그가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산헤드린 법정이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성전에서 아침 희생물을 제공하기 전에 산헤드린 법정이 소집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이 희생물이 바쳐지는 것은 새벽 세 시 경이었다.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의 저택에서 산헤드린 법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 30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가 자기들 앞에 호송되어왔을 때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자정 무렵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미 모여 있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강력하고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소집되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재판 법정 구성에 오직 23명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체포되신 겟세마네 정원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세 시간 가량 보내셨다. 요한 세베대가 안나스의 저택 안

INTRODUCTION

184:0.1 (1978.1) REPRESENTATIVES of Annas had secretly instructed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to bring Jesus immediately to the palace of Annas after he had been arrested. The former high priest desired to maintain his prestige as the chief ecclesiastical authority of the Jews. He also had another purpose in detaining Jesus at his house for several hours, and that was to allow time for legally calling together the court of the Sanhedrin. It was not lawful to convene the Sanhedrin court before the time of the offering of the morning sacrifice in the temple, and this sacrifice was offered abou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184:0.2 (1978.2) Annas knew that a court of Sanhedrists was in waiting at the palace of his son-in-law, Caiaphas. Some thirty members of the Sanhedrin had gathered at the home of the high priest by midnight so that they would be ready to sit in judgment on Jesus when he might be brought before them. Only those members were assembled who were strongly and openly opposed to Jesus and his teaching since it required only twenty-three to constitute a trial court.

184:0.3 (1978.3) Jesus spent about three hours at the palace of Annas on Mount Olivet, not far from the garden of Gethsemane, where they arrested him.

에서 무사하고 자유로웠던 것은, 로마인 지휘관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그 집의 오래된 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먼 친족이었으므로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John Zebedee was free and safe in the palace of Annas not only because of the word of the Roman captain, but also because he and his brother James were well known to the older servants, having many times been guests at the palace as the former high priest was a distant relative of their mother, Salome.

제 1 장. 안나스의 심문

성전 세입을 챙겨서 부자가 되었고, 그의 사위는 활동하는 대제사장이고, 로마 당국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안나스는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힘이 있는 개인이었다. 그는 상냥하면서도 은근하며 계획가요 음모자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무뚝뚝하고 공격적인 자기 사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주저하였다. 안나스는 주(主)의 재판이 반드시 사두개인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길 원하였다;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서 예수의 정당함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모두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동정심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던 것이다.

주(主)가 전에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그의 냉담함과 유보적 태도를 보시고 즉시 떠나신 이후로, 안나스는 예수를 수년 동안 만나지 못하였었다. 안나스는 일찍부터 알고 있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주장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을 떠나가도록 예수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는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며 예수가 죽음을 감수하기보다는 그 고장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건장하고 굳게 결심한 모습의 갈릴리 사람 앞에 선 안나스는 그러한 제안이 아무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예수는 안나스가 그를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장엄하고 차분하였다.

예수가 젊었을 때, 안나스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예수가 아주 최근에 환전상들과 다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심으로 인하여 그의 수입이 위협을 받았다. 예수의 가르침보다도 이러한 행동이,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에게 앙심을 품게 하였던 것이다.

안나스는 그의 넓은 접견실로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은 후에, 예수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주(主)를 찬찬히 살펴본 후에, “네가 우리 고장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르침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너도 깨닫고 있다.” 안나스가 미심쩍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자, 주(主)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다시 말하였다. “선동자인 시몬 켈로페 외에, 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는 다시 그를 쳐다보고 눈을 내리뜨시고, 대답하지 않았다.

1. EXAMINATION BY ANNAS

184:1.1 (1978.4) Annas, enriched by the temple revenues, his son-in-law the acting high priest, and with his relations to the Roman authorities, was indeed the most powerful single individual in all Jewry. He was a suave and politic planner and plotter. He desired to direct the matter of disposing of Jesus; he feared to trust such an important undertaking wholly to his brusque and aggressive son-in-law. Annas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Master's trial was kept in the hands of the Sadducees; he feared the possible sympathy of some of the Pharisees, seeing that practically all of those members of the Sanhedrin who had espoused the cause of Jesus were Pharisees.

184:1.2 (1978.5) Annas had not seen Jesus for several years, not since the time when the Master called at his house and immediately left upon observing his coldness and reserve in receiving him. Annas had thought to presume on this early acquaintance and thereby attempt to persuade Jesus to abandon his claims and leave Palestine. He was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murder of a good man and had reasoned that Jesus might choose to leave the country rather than to suffer death. But when Annas stood before the stalwart and determined Galilean, he knew at once that it would be useless to make such proposals. Jesus was even more majestic and well poised than Annas remembered him.

184:1.3 (1979.1) When Jesus was young, Annas had taken a great interest in him, but now his revenues were threatened by what Jesus had so recently done in driving the money-changers and other commercial traders out of the temple. This act had aroused the enmity of the former high priest far more than had Jesus' teachings.

184:1.4 (1979.2) Annas entered his spacious audience chamber, seated himself in a large chair, and commanded that Jesus be brought before him. After a few moments spent in silently surveying the Master, he said: “You realize that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your teaching since you are disturbing the peace and order of our country.” As Annas looked inquiringly at Jesus, the Master looked full into his eyes but made no reply. Again Annas spoke, “What are the names of your disciples, besides Simon Zelotes, the agitator?” Again Jesus looked down upon him, but he did not

안나스는 자기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단히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네게 친절하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다가오는 네 재판의 논쟁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가 말했다; “안나스여, 내 아버지로부터 허락되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 어떠한 힘도 내게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이상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친구여,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런즉 당신이 어떻게 하느님의 빛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나?”

예수가 안나스에게 말쑥한 친절한 태도가 그를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팔레스타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나?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당신이 잘 알고 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여러 번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내 말을 들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느냐? 너는 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것을 비록 당신 자신은 이 가르침들을 듣지 못하였어도 모든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러나 안나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 서 있던, 그 저택의 사무장이 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님께 그런 말로 대답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안나스는 자기 사무장을 꾸짖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친구여, 내가 악한 말을 하였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였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안나스는 자기 사무장이 예수를 때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일을 주목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다. 그는 당황하여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하인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홀로 내버려두었다.

다시 돌아온 그는, 주(主) 옆으로 가서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해방자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는 대답했다; “안나스여,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임명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나?” 예수는 안나스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데로이다.”

이 때, 언제쯤 예수를 산헤드린 법정 앞으로

answer.

184:1.5 (1979.3) Annas was considerably disturbed by Jesus' refusal to answer his questions, so much so that he said to him: "Do you have no care as to whether I am friendly to you or not? Do you have no regard for the power I have in determining the issues of your coming trial?" When Jesus heard this, he said: "Annas, you know that you could have no power over me unless it were permitted by my Father. Some would destroy the Son of Man because they are ignorant; they know no better, but you, friend, know what you are doing. How can you, therefore, reject the light of God?"

184:1.6 (1979.4) The kindly manner in which Jesus spoke to Annas almost bewildered him. But he had already determined in his mind that Jesus must either leave Palestine or die; so he summoned up his courage and asked: "Just what is it you are trying to teach the people? What do you claim to be?" Jesus answered: "You know full well that I have spoken openly to the world. I have taught in the synagogues and many times in the temple, where all the Jews and many of the gentiles have heard me. In secret I have spoken nothing; why, then, do you ask me about my teaching? Why do you not summon those who have heard me and inquire of them? Behold, all Jerusalem has heard that which I have spoken even if you have not yourself heard these teachings." But before Annas could make reply, the chief steward of the palace, who was standing near, struck Jesus in the face with his hand, saying, "How dare you answer the high priest with such words?" Annas spoke no words of rebuke to his steward, but Jesus addressed him, saying, "My friend, if I have spoken evil, bear witness against the evil; but if I have spoken the truth, why, then, should you smite me?"

184:1.7 (1979.5) Although Annas regretted that his steward had struck Jesus, he was too proud to take notice of the matter. In his confusion he went into another room, leaving Jesus alone with the household attendants and the temple guards for almost an hour.

184:1.8 (1979.6) When he returned, going up to the Master's side, he said, "Do you claim to be the Messiah, the deliverer of Israel?" Said Jesus: "Annas, you have known me from the times of my youth. You know that I claim to be nothing except that which my Father has appointed, and that I have been sent to all men, gentile as well as Jew." Then said Annas: "I have been told that you have claimed to be the Messiah; is that true?" Jesus looked upon Annas but only replied, "So you have said."

184:1.9 (1980.1) About this time messengers arrived from the palace of Caiaphas to inquire what time

끌고 올 것인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가야바의 저택에서 메신저들이 도착하였다; 거의 날이 셀 무렵이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하고 성전 경비병들로 호위하게 하여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잠시 후에 그들을 따라갔다.

제 2 장.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일단(一團)의 경비병들과 군인들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로 다가갈 때, 요한 세베데는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유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뒤에 떨어져 있었으며, 시몬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병들과 함께 저택의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에, 유다도 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을 보자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갔으며, 그곳에서 주(主)에 대한 실제 재판이 나중에 벌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다가 떠난 직후,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섰고,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호송해 들어가려고 할 때 요한이 그를 보았다. 문을 지키는 여종을 요한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기꺼이 들어주었다.

안마당에 들어선 베드로는 밤공기가 차가웠으므로 숯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자 하였다. 그는 예수의 적들 가운데에 있는 이곳이 무척 어색하게 느꼈으며, 정말로 그는 어색했다. 주(主)는 요한에게 부탁한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주(主)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한 지시를 받은 다른 사도들 중에 베드로도 포함되었었다.

베드로는 그 저택 문으로 다가오기 직전에 자기 칼을 버렸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실제 상황—자신이 안나스의 안마당에 와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쪼고 있다는—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다가, 요한이 어떻게 하여 그 저택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문지기에게 그를 허락하도록 그가 말하였음으로 하인들이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직후, 그리고 그가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입니까?”라고 장난기 어린 태도로 묻었는데, 그 여자에게 저택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때 이렇게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베드로가 놀랄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는 너무도 긴장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정체화구현이 그의 평정을 깨어 버렸다, 그리고 오직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살아

Jesus would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the Sanhedrin, and since it was nearing the break of day, Annas thought best to send Jesus bound and in the custody of the temple guards to Caiaphas. He himself followed after them shortly.

2. PETER IN THE COURTYARD

184:2.1 (1980.2) As the band of guards and soldiers approached the entrance to the palace of Annas, John Zebedee was marching by the side of the captain of the Roman soldiers. Judas had dropped some distance behind, and Simon Peter followed afar off. After John had entered the palace courtyard with Jesus and the guards, Judas came up to the gate but, seeing Jesus and John, went on over to the home of Caiaphas, where he knew the real trial of the Master would later take place. Soon after Judas had left, Simon Peter arrived, and as he stood before the gate, John saw him just as they were about to take Jesus into the palace. The portress who kept the gate knew John, and when he spoke to her, requesting that she let Peter in, she gladly assented.

184:2.2 (1980.3) Peter, upon entering the courtyard, went over to the charcoal fire and sought to warm himself, for the night was chilly. He felt very much out of place here among the enemies of Jesus, and indeed he was out of place. The Master had not instructed him to keep near at hand as he had admonished John. Peter belonged with the other apostles, who had been specifically warned not to endanger their lives during these times of the trial and crucifixion of their Master.

184:2.3 (1980.4) Peter threw away his sword shortly before he came up to the palace gate so that he entered the courtyard of Annas unarmed. His mind was in a whirl of confusion; he could scarcely realize that Jesus had been arrested. He could not grasp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 that he was here in the courtyard of Annas, warming himself beside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He wondered what the other apostles were doing and, in turning over in his mind as to how John came to be admitted to the palace, concluded that it was because he was known to the servants, since he had bidden the gate-keeper admit him.

184:2.4 (1980.5) Shortly after the portress let Peter in, and while he was warming himself by the fire, she went over to him and mischievously said, “Are you not also one of this man’s disciples?” Now Peter should not have been surprised at this recognition, for it was John who had requested that the girl let him pass through the palace gates; but he was in such a tense nervous state that this identification as a disciple threw him off his balance, and with only one thought uppermost in his mind — the

서 도망가야겠다는—으로 그 여종에게 즉석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곧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제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랐으며; 이 고발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고서; 예수와의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부정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의 제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의 하나가 당신을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의 자매가 당신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당신이 부인하십니까?” 그 여종의 비난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심한 저주와 맹세로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며;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베드로는 숯불 곁을 떠나 잠시 동안 안마당을 거닐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냉정을 되찾으면서, 숯불 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서 있는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이다. 예수라 하는 저 사람은 갈릴리인인데, 당신의 말하는 투를 보니, 역시 갈릴리 인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자 베드로는 다시 주(主)와의 모든 관계성을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그 불 곁에서 떠나 혼자 입구로 가 있음으로써, 그의 고발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자 하였다. 한 시간 이상 혼자 있는 후에, 문을 지키는 여종과 그녀의 자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깃곳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비난을 다시 부인하였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할 때, 수탉이 울었으며, 베드로는 그 날 밤 일찍 주(主)가 자기에게 한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가 죄의식으로 무너져 내린 무거운 가슴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호송하여 가야바의 집으로 향하였다. 베드로의 옆을 지나가시던 주(主)는, 횃불의 빛에, 전에 자아-확신차고 걸으로 용감하였던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스런 표정을 보았으며,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잊지 못하였다. 주(主)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필사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연민의 정이 뒤섞여 있었다.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의 문을 나선 후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으나, 단지 짧은 거리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는 길옆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는 고뇌의 눈물을 흘린 후에, 자기 형인 안드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thought of escaping with his life — he promptly answered the maid's question by saying, “I am not.”

184:2.5 (1980.6) Very soon another servant came up to Peter and asked: “Did I not see you in the garden when they arrested this fellow? Are you not also one of his followers?” Peter was now thoroughly alarmed; he saw no way of safely escaping from these accusers; so he vehemently denied all connection with Jesus, saying, “I know not this man, neither am I one of his followers.”

184:2.6 (1980.7) About this time the portress of the gate drew Peter to one side and said: “I am sure you are a disciple of this Jesus, not only because one of his followers bade me let you in the courtyard, but my sister here has seen you in the temple with this man. Why do you deny this?” When Peter heard the maid accuse him, he denied all knowledge of Jesus with much cursing and swearing, again saying, “I am not this man's follower; I do not even know him; I never heard of him before.”

184:2.7 (1981.1) Peter left the fireside for a time while he walked about the courtyard. He would have liked to have escaped, but he feared to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Getting cold, he returned to the fireside, and one of the men standing near him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is man's disciples. This Jesus is a Galilean, and your speech betrays you, for you also speak as a Galilean.” And again Peter denied all connection with his Master.

184:2.8 (1981.2) Peter was so perturbed that he sought to escape contact with his accusers by going away from the fire and remaining by himself on the porch. After more than an hour of this isolation, the gate-keeper and her sister chanced to meet him, and both of them again teasingly charged him with being a follower of Jesus. And again he denied the accusation. Just as he had once more denied all connection with Jesus, the cock crowed,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s of warning spoken to him by his Master earlier that same night. As he stood there, heavy of heart and crushed with the sense of guilt, the palace doors opened, and the guards led Jesus past on the way to Caiaphas. As the Master passed Peter, he saw, by the light of the torches, the look of despair on the face of his former self-confident and superficially brave apostle, and he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Peter never forgot that look as long as he lived. It was such a glance of commingled pity and love as mortal man had never beheld in the face of the Master.

184:2.9 (1981.3) After Jesus and the guards passed out of the palace gates, Peter followed them, but only for a short distance. He could not go farther. He sat down by the side of the road and wept bitterly. And when he had shed these tears of

감에서 야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영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다윗 세배대 밖에 없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의 형에게로 베드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메신저 한 명을 같이 보냈다.

베드로의 전체 체험은 올리브 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마당에서 발생했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수탉이 울 때까지 자신이 주(主)를 여러 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음을 뜻하는데, 성(城)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은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수탉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맑은 감각으로 돌려놓기까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현관 앞을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그는 오직 어떻게 그 하인들의 고발을 교묘하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자신을 예수와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킬까하는 것만 생각했었다. 그는 한동안 이 하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도의적 혹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골몰하였으며, 정체성이 확인된 존재가 되는 것을 피했고 체포되고 감금될 가능성에서 벗어났다고, 그가 생각한 방법에 실제로 스스로를 기뻐하고 있었다. 수탉이 울 때까지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했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를 바라보셨을 때까지는, 그는 자신이 왕국 대사로서의 특권에 걸맞게 사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타협과 가장 작은 저항의 절충적인 길로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오직 결정했던 행위에 대한 길을 계속 갈 뿐이었다. 그릇되게 시작된 것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일에는 위대하고 숭고한 성격이 요구된다. 사람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흔히 한번 실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主)를 만날 때까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충분히 믿지 못하였으며, 주를 만난 후에야 그가 주(主)를 부인한 이 비극적인 밤이 있기 전과 똑같이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제 3 장. 산헤드린 회원들의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산헤드린 심리법정을 소집하고, 예수를 그 앞으로 끌고 와 정식 재판을 시작하도록 요청한 것은, 금요일 아침 세시 반경이었다. 산헤드린은 이전의 세 번의 회의에서, 대다수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율법을 어김과 신성 모독죄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의 전통을 경멸한 것에 대한 비공식 고소에 따라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하였었다.

이번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산헤드린

agony, he turned his steps back toward the camp, hoping to find his brother, Andrew. On arriving at the camp, he found only David Zebedee, who sent a messenger to direct him to where his brother had gone to hide in Jerusalem.

184:2.10 (1981.4) Peter's entire experience occurred in the courtyard of the palace of Annas on Mount Olivet. He did not follow Jesus to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Caiaphas. That Peter was brought to the realization that he had repeatedly denied his Master by the crowing of a cock indicates that this all occurred outside of Jerusalem since it was against the law to keep poultry within the city proper.

184:2.11 (1981.5) Until the crowing of the cock brought Peter to his better senses, he had only thought, as he walked up and down the porch to keep warm, how cleverly he had eluded the accusations of the servants, and how he had frustrated their purpose to identify him with Jesus. For the time being, he had only considered that these servants had no moral or legal right thus to question him, and he really congratulated himself over the manner in which he thought he had avoided being identified and possibly subjected to arrest and imprisonment. Not until the cock crowed did it occur to Peter that he had denied his Master. Not until Jesus looked upon him, did he realize that he had failed to live up to his privileges as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184:2.12 (1981.6) Having taken the first step along the path of compromise and least resistance, there was nothing apparent to Peter but to go on with the course of conduct decided upon. It requires a great and noble character, having started out wrong, to turn about and go right. All too often one's own mind tends to justify continuance in the path of error when once it is entered upon.

184:2.13 (1982.1) Peter never fully believed that he could be forgiven until he met his Master after the resurrection and saw that he was received just as before the experiences of this tragic night of the denials.

3. BEFORE THE COURT OF SANHEDRISTS

184:3.1 (1982.2) It was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this Friday morning when the chief priest, Caiaphas, called the Sanhedrist court of inquiry to order and asked that Jesus be brought before them for his formal trial. On three previous occasions the Sanhedrin, by a large majority vote, had decreed the death of Jesus, had decided that he was worthy of death on informal charges of lawbreaking, blasphemy, and flouting the traditions of the fathers of Israel.

184:3.2 (1982.3) This was not a regularly called

회의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장소인 성전 안의 다듬어진, 돌로 지어진 방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다. 약 30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대제사장의 제택에서 소집된 특별한 재판 법정이었다. 요한 세베데는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 전체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신들의 지위를 교란시키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가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여, 우두머리 사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쭐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한에 사무친 쇠고랑을 그가 결코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사형에 관한 죄를 심리할 때, 엄청난 조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그리고 증인 선택과 재판의 전반적 수행에서 공정성에서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야바는 편견이 없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였다.

예수는 평상시의 복장과 두 손을 뒤로 묶이신 모습으로 이 법정 앞에 서셨다. 법정 전체가 그의 장엄한 모습에 술렁거렸고 얼마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에서 그토록 태연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그러한 죄인을 본 적이 없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죄수에게 죄가 인정되기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만 하였다. 유다는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 법이 특별히 배반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반대하는 거짓 증인이 20명 이상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너무 모순되고 너무 명백하게 날조된 것이어서 산헤드린 회원들조차도 그 엉터리 연기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예수는 그곳에 서서 이 위증자들을 온화한 모습으로 지켜보셨으며, 그의 이러한 침착함에 거짓 증인들은 어쩔 줄 모르게 당황하였다. 거짓 증인이 진행되는 동안 주(主)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여러 가지 거짓 고소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 비슷하게라도 두 증인이 일치될 만한 첫 번째 증거는, 예수가 성전에서 강연하는 중에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을 쓰지 않고 다른 성전을 삼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된 말씀을 하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지적 놓더라도, 그것은 예수가 한 말씀에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이 “이 고발들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예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그곳에 조용히 서 계셨다. 이 위증자들의 말속에서 증오심, 광신, 그리고 사악한 과장의 성격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was not held in the usual place, the chamber of hewn stone in the temple. This was a special trial court of some thirty Sanhedrists and was conven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John Zebedee was present with Jesus throughout this so-called trial.

184:3.3 (1982.4) How these chief priests, scribes, Sadducees, and some of the Pharisees flattered themselves that Jesus, the disturber of their position and the challenger of their authority, was now securely in their hands! And they were resolved that he should never live to escape their vengeful clutches.

184:3.4 (1982.5) Ordinarily, the Jews, when trying a man on a capital charge, proceeded with great caution and provided every safeguard of fairness in the selection of witnesses and the entire conduct of the trial. But on this occasion, Caiaphas was more of a prosecutor than an unbiased judge.

184:3.5 (1982.6) Jesus appeared before this court clothed in his usual garments and with his hands bound together behind his back. The entire court was startled and somewhat confused by his majestic appearance. Never had they gazed upon such a prisoner nor witnessed such composure in a man on trial for his life.

184:3.6 (1982.7) The Jewish law required that at least two witnesses must agree upon any point before a charge could be laid against the prisoner. Judas could not be used as a witness against Jesus because the Jewish law specifically forbade the testimony of a traitor. More than a score of false witnesses were on hand to testify against Jesus, but their testimony was so contradictory and so evidently trumped up that the Sanhedrists themselves were very much ashamed of the performance. Jesus stood there, looking down benignly upon these perjurers, and his very countenance disconcerted the lying witnesses. Throughout all this false testimony the Master never said a word; he made no reply to their many false accusations.

184:3.7 (1982.8) The first time any two of their witnesses approached even the semblance of an agreement was when two men testified that they had heard Jesus say in the course of one of his temple discourses that he would “destroy this temple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make another temple without hands.” That was not exactly what Jesus sai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he pointed to his own body when he made the remark referred to.

184:3.8 (1982.9) Although the high priest shouted at Jesus, “Do you not answer any of these charges?” Jesus opened not his mouth. He stood there in silence while all of these false witnesses gave their testimony. Hatred, fanaticism, and

이 너무나 잘 드러났으므로 자기들의 말에 스스로 얽혀들었다.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바로 평온하고도 장엄한 주(主)의 침묵이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된 직후에, 안나스가 도착하였으며 가야바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안나스가 마침내 일어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예수의 험박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고발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중상모략자이다. 그가 불가능한 일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그들을 속였음.

2. 그는 거룩한 성전에 폭력적인 일을 선동하는 광신적 혁명가였음. 아니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3. 손을 쓰지 않고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는 마법을 가르친 것임.

예수가 유대 법에 죽음이 합당한 범죄를 지었다고 산헤드린 전체가 이미 합의하였으나, 그들은 이제 빌라도가 그들의 죄수에게 사형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의 행위와 가르침들에 관하여 더 확실한 고발들을 개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이전에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가 사람들 속에 풀어 놓기에는 위험한 선생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러나 가야바는 주(主)가 완전한 침착성과 흔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곳에 서 계시는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그 죄수가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예수 옆으로 달려가서, 주(主)의 얼굴 앞에 비난조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청하겠는데,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방자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는 가야바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며, 사람의 아들은 곧 능력을 부여받고 다시 하늘의 무리들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그 대제사장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자기 겹옷을 찢으며 고함쳤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보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의 말을 너희들 모두 들었다.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한 음성으로 대답하기를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를 십자가에 달자.”

예수는 자신의 증여 임무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안나스와 산헤드린 회원들의

unscrupulous exaggeration so characterized the words of these perjurers that their testimony fell in its own entanglements. The very best refutation of their false accusations was the Master's calm and majestic silence.

184:3.9 (1983.1) Shortly after the beginning of the testimony of the false witnesses, Annas arrived and took his seat beside Caiaphas. Annas now arose and argued that this threat of Jesus to destroy the temple was sufficient to warrant three charges against him:

184:3.10 (1983.2) 1. That he was a dangerous traducer of the people. That he taught them impossible things and otherwise deceived them.

184:3.11 (1983.3) 2. That he was a fanatical revolutionist in that he advocated laying violent hands on the sacred temple, else how could he destroy it?

184:3.12 (1983.4) 3. That he taught magic inasmuch as he promised to build a new temple, and that without hands.

184:3.13 (1983.5) Already had the full Sanhedrin agreed that Jesus was guilty of death-deserving transgressions of the Jewish laws, but they were now more concerned with developing charges regarding his conduct and teachings which would justify Pilate in pronouncing the death sentence upon their prisoner. They knew that they must secure the consent of the Roman governor before Jesus could legally be put to death. And Annas was minded to proceed along the line of making it appear that Jesus was a dangerous teacher to be abroad among the people.

184:3.14 (1983.6) But Caiaphas could not longer endure the sight of the Master standing there in perfect composure and unbroken silence. He thought he knew at least one way in which the prisoner might be induced to speak. Accordingly, he rushed over to the side of Jesus and, shaking his accusing finger in the Master's face, said: "I adjure you, in the name of the living God, that you tell us whether you are the Deliverer, the Son of God." Jesus answered Caiaphas: "I am. Soon I go to the Father, and presently shall the Son of Man be clothed with power and once more reign over the hosts of heaven."

184:3.15 (1983.7) When the high priest heard Jesus utter these words, he was exceedingly angry, and rending his outer garments, he exclaimed: "What further need have we of witnesses? Behold, now have you all heard this man's blasphemy. What do you now think should be done with this lawbreaker and blasphemer?" And they all answered in unison, "He is worthy of death; let him be crucified."

184:3.16 (1983.8) Jesus manifested no interest in any question asked him when before Annas or the

어떤 질문에도 관심을 현시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지를 묻자, 그는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단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안나스는 재판을 계속하여, 로마법과 제도에 따라서 예수를 확실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갖춘 후에 빌라도에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어서 정오가 지난 후에는 세속적인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이유와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오직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만 예루살렘에 머물기 때문에 유대의 로마 행정부가 있는 케사리아로 언제 돌아갈지 몰라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나스는 그 법정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예수가 가야바에게 너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자, 그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다. 법정의 다른 구성원들도 방을 나가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자 안나스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무질서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재판의 첫 공판이 4시 30분 경에 끝났다.

전통에 눈이 멀고 편견을 가진 30명의 거짓 재판관들은 거짓 증인들과 함께 한 우주의 정의로운 창조자를 주재님께 재판하고 있다. 그리고 흥분한 이 고소자들은 이 하느님-사람의 장엄한 침묵과 뛰어난 인내심 때문에 격분하고 있다. 그의 침묵은 도저히 견디기에 힘들며; 그의 말쑥은 대답하게 도전적이다. 그는 그들의 협박에 동요되지 않으며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하느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런 때에도 그는 이들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제 4 장. 굴욕의 시간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두 번 법정이 열려야 했다. 두 번째의 법정은 첫 번째 다음 날 열려야 했으며, 그 중간 시간은 법정의 위원들이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지내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자기들의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한 시간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 동안 예수는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접견실에 남아 계셨으며, 그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갖은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을 모욕하면서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침을 뱉었으며, 심하게 때렸다. 그들은 회초리로 얼굴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네가 해방자라면 너를 때린 것이 누구였는지 말해보아라.” 저항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은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하였다.

Sanhedrists except the one question relative to his bestowal mission. When asked if he were the Son of God, he instantly and unequivocally answered in the affirmative.

184:3.17 (1983.9) Annas desired that the trial proceed further, and that charges of a definite nature regarding Jesus' relation to the Roman law and Roman institutions be formulated for subsequent presentation to Pilate. The councilors were anxious to carry these matters to a speedy termination, not only because it was the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and no secular work should be done after noon, but also because they feared Pilate might any time return to the Roman capital of Judea, Caesarea, since he was in Jerusalem only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184:3.18 (1983.10) But Annas did not succeed in keeping control of the court. After Jesus had so unexpectedly answered Caiaphas, the high priest stepped forward and smote him in the face with his hand. Annas was truly shocked as the other members of the court, in passing out of the room, spit in Jesus' face, and many of them mockingly slapped him with the palms of their hands. And thus in disorder and with such unheard-of confusion this first session of the Sanhedrist trial of Jesus ended at half past four o'clock.

184:3.19 (1984.1) Thirty prejudiced and tradition-blinded false judges, with their false witnesses, are presuming to sit in judgment on the righteous Creator of a universe. And these impassioned accusers are exasperated by the majestic silence and superb bearing of this God-man. His silence is terrible to endure; his speech is fearlessly defiant. He is unmoved by their threats and undaunted by their assaults. Man sits in judgment on God, but even then he loves them and would save them if he could.

4. THE HOUR OF HUMILIATION

184:4.1 (1984.2) The Jewish law required that, in the matter of passing the death sentence, there should be two sessions of the court. This second session was to be held on the day following the first, and the intervening time was to be spent in fasting and mourning by the members of the court. But these men could not await the next day for the confirmation of their decision that Jesus must die. They waited only one hour. In the meantime Jesus was left in the audience chamber in the custody of the temple guards, who, with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amused themselves by heaping every sort of indignity upon the Son of Man. They mocked him, spit upon him, and cruelly buffeted him. They would strike him in the face with a rod and then say, "Prophecy to us, you the Deliverer, who it was that struck you." And thus they went on

무지하고 무정한 경비병들과 하인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조롱을 받는 비참한 시간 동안, 요한 세베대는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가혹 행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는 요한에게, 그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물러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주(主)는 자기 사도가 그 방에 남아서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를 보게 된다면, 요한의 분개심이 치솟아 올라서 참지 못하고 덤벼들어서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시간 동안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이 우주의 하느님과의 개인성 관계 속에 결합된 온화하고 감성적인 인류의 혼에게, 소위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속한 위원들의 분을 따라 그를 학대하도록 자극을 받은, 무지하고 잔인한 경비병들과 하인들의 처분대로 보낸 이 끔찍한 시간보다 더 쓰라린 굴욕의 잔은 없었다.

천상의 지능존재들이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죄로 어두워진 불행한 유란시아 구체에서 자신의 무지하고 잘못 인도된 창조체들의 뜻에 복종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전 우주로 퍼져나간 그들의 분개의 전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인간의 가슴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얻을 것이 없고 지능적으로 성취할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이 동물적 특색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혜에서 그리고 영적 달성에서 우월한 사람들에게서 그 자체가 휘어질 것을 찾는 악한 야만성이, 반(半)문명화된 사람 속에 아직도 숨어있다. 그들이 반항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육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기쁨을 나타낼 때, 우리는 문명화된 것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악한 야비함과 야만적인 만행을 목격한다. 이러한 모욕과 조롱 그리고 구타가 주(主)께 가해졌을 때, 그가 방어하지 않은 것이지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패배한 것이 아니며, 물리적 감각에서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들은 광대하고 멀리 퍼진 우주의 조물주, 유지자, 구원자로서 그의 길고도 사건 많은 생애 중에서 주(主)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들이다.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하는 충만한 일생을 살아왔으며, 이제 예수는 사람을 하느님께 계시하는 새롭고도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드는 데 종사되고 있다. 예수는 지금, 창조체 개인성 고립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세상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성취해 왔다.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단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극의 그리고 장엄한 체험의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는 모든 왕국의 믿는 자에게, 그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타이른다. 예

for one full hour, reviling and mistreating this unresisting man of Galilee.

184:4.2 (1984.3) During this tragic hour of suffering and mock trials before the ignorant and unfeeling guards and servants, John Zebedee waited in lonely terror in an adjoining room. When these abuses first started, Jesus indicated to John, by a nod of his head, that he should retire. The Master well knew that, if he permitted his apostle to remain in the room to witness these indignities, John's resentment would be so aroused as to produce such an outbreak of protesting indignation as would probably result in his death.

184:4.3 (1984.4) Throughout this awful hour Jesus uttered no word. To this gentle and sensitive soul of humankind, joined in personality relationship with the God of all this universe, there was no more bitter portion of his cup of humiliation than this terrible hour at the mercy of these ignorant and cruel guards and servants, who had been stimulated to abuse him by the example of the members of this so-called Sanhedrist court.

184:4.4 (1984.5) The human heart cannot possibly conceive of the shudder of indignation that swept out over a vast universe as the celestial intelligences witnessed this sight of their beloved Sovereign submitting himself to the will of his ignorant and misguided creatures on the sin-darkened sphere of unfortunate Urantia.

184:4.5 (1984.6) What is this trait of the animal in man which leads him to want to insult and physically assault that which he cannot spiritually attain or intellectually achieve? In the half-civilized man there still lurks an evil brutality which seeks to vent itself upon those who are superior in wisdom and spiritual attainment. Witness the evil coarseness and the brutal ferocity of these supposedly civilized men as they derived a certain form of animal pleasure from this physical attack upon the unresisting Son of Man. As these insults, taunts, and blows fell upon Jesus, he was undefending but not defenseless. Jesus was not vanquished, merely uncontending in the material sense.

184:4.6 (1985.1) These are the moments of the Master's greatest victories in all his long and eventful career as maker, upholder, and savior of a vast and far-flung universe. Having lived to the full a life of revealing God to man, Jesus is now engaged in making a new and unprecedented revelation of man to God. Jesus is now revealing to the worlds the final triumph over all fears of creature personality isolation. The Son of Man has finally achieved the realization of identity as the Son of God. Jesus does not hesitate to assert that he and the Father are one; and on the basis of the fact and truth of that supreme and supernal experience, he admonishes every kingdom believer to become one with him even as he and

수의 종교 안에서 살아있는 체험은, 그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법이 되어, 그로써 영적으로 고립되고 조화우주적으로 고독한 이 땅의 필사자들이, 개인성 고립을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두려움이 결과들 그리고 그에 연관된 어떤 도움도 없는 느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늘의 왕국의 형제우애적 실체들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의 아들은 개인에서 그리고 행성에서 둘 모두에서의 자아의 고립으로부터 최종적 해방을 발견한다. 하느님을 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완전 달성의 신성한 운명의 영원한 실현과 연관되는 높은 곳의 시민관계—위에서 점점 증가하는 영적 사회화구현의 황홀함과 웅장함을 체험한다.

his Father are one. The living experience in the religion of Jesus thus becomes the sure and certain technique whereby the spiritually isolated and cosmically lonely mortals of earth are enabled to escape personality isolation, with all its consequences of fear and associated feelings of helplessness. In the fraternal realities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faith sons of God find final deliverance from the isolation of the self, both personal and planetary. The God-knowing believer increasingly experiences the ecstasy and grandeur of spiritual socialization on a universe scale — citizenship on high in association with the eternal realization of the divine destiny of perfection attainment.

제 5 장. 두 번째 열린 법정

5시 30분에 법정이 다시 속개되었고, 예수는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옆방으로 끌려갔다. 빌라도에게 제시될 고소장을 법정에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동안 이곳에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감시하였다. 안나스는 신성모독죄 만을 가지고서는 빌라도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연관-동료들에게 분명히 하였다. 두 번째 열린 법정에 유다도 참석하였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열린 법정은 반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빌라도 앞으로 가기 위하여 자리를 옮겼을 때는, 그들은 세 가지 항목으로 사형이 합당하다는 예수의 기소장이 작성되었다;

1. 그는 유대 나라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임; 그는 민족을 속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음.

2. 시저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음.

3. 새로운 왕국을 창설하는 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을 주장함으로써 황제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였음.

이러한 진행 전체는 변칙적인 것이었고 유대인 법에도 전혀 어긋나는 것이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삼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변론을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예수께 그 의미를 묻지도 않았다.

법정이 그에게 일관되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은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전적으로 그 자신의 고백에 입각한 것이었다. 신성모독에 관한 것에서도 그들은 사형선고를 위한 공식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기 위하여 세 가지 기소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그 조항들은 증언도 듣지 않은 것이었고 기소된 죄수가

5. THE SECOND MEETING OF THE COURT

184:5.1 (1985.2) At five-thirty o'clock the court reassembled, and Jesus was led into the adjoining room, where John was waiting. Here the Roman soldier and the temple guards watched over Jesus while the court began the formulation of the charges which were to be presented to Pilate. Annas made it clear to his associates that the charge of blasphemy would carry no weight with Pilate. Judas was present during this second meeting of the court, but he gave no testimony.

184:5.2 (1985.3) This session of the court lasted only a half hour, and when they adjourned to go before Pilate, they had drawn up the indictment of Jesus, as being worthy of death, under three heads:

184:5.3 (1985.4) 1. That he was a perverter of the Jewish nation; he deceived the people and incited them to rebellion.

184:5.4 (1985.5) 2. That he taught the people to refuse to pay tribute to Caesar.

184:5.5 (1985.6) 3. That, by claiming to be a king and the founder of a new sort of kingdom, he incited treason against the emperor.

184:5.6 (1985.7) This entire procedure was irregular and wholly contrary to the Jewish laws. No two witnesses had agreed on any matter except those who testified regarding Jesus' statement about destroying the temple and raising it again in three days. And even concerning that point, no witnesses spoke for the defense, and neither was Jesus asked to explain his intended meaning.

184:5.7 (1985.8) The only point the court could have consistently judged him on was that of blasphemy, and that would have rested entirely on his own testimony. Even concerning blasphemy, they failed to cast a formal ballot for the death sentence.

184:5.8 (1985.9) And now they presumed to formulate three charges, with which to go before Pilate, on which no witnesses had been heard, and which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이 일이 끝나자, 바리새인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며; 그들도 예수가 죽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였지만, 증인도 없이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예수는 산헤드린 회원의 법정에서 다시 나가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순결한 일생을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낭독되는 것을 듣기까지 그들의 공식적인 기소장을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요한과 경비병들과 함께 같은 방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이 열리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 저택에 있던 부인들 몇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그 색다른 죄수를 보려고 그곳에 와서, 그 중의 하나가 그에게 “네가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네게 말하여도,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게 물어보아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산헤드린 회원들의 법정에서 매우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형 선고를 빌라도 앞에서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는 그 날 아침 6시에 가야바의 집에서 끌려가셨다.

were agreed upon while the accused prisoner was absent. When this was done, three of the Pharisees took their leave; they wanted to see Jesus destroyed, but they would not formulate charges against him without witnesses and in his absence.

184:5.9 (1986.1) Jesus did not again appear before the Sanhedrist court. They did not want again to look upon his face as they sat in judgment upon his innocent life. Jesus did not know (as a man) of their formal charges until he heard them recited by Pilate.

184:5.10 (1986.2) While Jesus was in the room with John and the guards, and while the court was in its second session, some of the women about the high priest's palace, together with their friends, came to look upon the strange prisoner, and one of them asked him, “Are you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Jesus answered: “If I tell you, you will not believe me; and if I ask you, you will not answer.”

184:5.11 (1986.3) At six o'clock that morning Jesus was led forth from the home of Caiaphas to appear before Pilate for confirm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which this Sanhedrist court had so unjustly and irregularly decreed.

제 185 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 184

유랜시아 책

18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5 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색션

소개

- 제 1 장. 본디오 빌라도
- 제 2 장.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예수
- 제 3 장.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 제 4 장. 헤롯 앞에서의 예수
- 제 5 장. 빌라도에게 다시오신 예수
- 제 6 장.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 제 7 장.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 제 8 장. 빌라도의 비극적인 굴복

PAPER 185

THE TRIAL BEFORE PILATE

SECTIONS

Introduction

- 1. Pontius Pilate
- 2. Jesus Appears Before Pilate
- 3. The Private Examination by Pilate
- 4. Jesus Before Herod
- 5. Jesus Returns to Pilate
- 6. Pilate's Last Appeal
- 7. Pilate's Last Interview
- 8. Pilate's Tragic Surrender

소개

같은 날인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아침 6시가 조금 지나서, 예수는 시리아 영주의 직접 감독 아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미아를 다스리는, 로마 행정관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다. 주(主)가 로마 총독 앞으로 현존 안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는 묶여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성전 경비병들이 서 있었으며, 50명 정도의 고소자들이 따라왔으며, 그들 중에는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주로 사두개인들), 가롯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빌라도는 전 날 저녁에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 일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시키기 위하여 그의 허락을 얻으러 왔던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일찍 자기 앞으로 끌려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침 일찍 방문하는 이 무리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깨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안토니아의 요새에 붙어있는 집정관 관저 앞에서 열기로 계획되었는데, 그곳은 빌라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본부로 사용하는 장소였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심문을 대부분 집정관

INTRODUCTION

185:0.1 (1987.1) SHORTLY after six o'clock on this Friday morning, April 7, A.D. 30, Jesus was brought before Pilate, the Roman procurator who governed Judea, Samaria, and Idumea under the immediate supervision of the legatus of Syria. The Master was taken into the presence of the Roman governor by the temple guards, bound, and was accompanied by about fifty of his accusers, including the Sanhedrist court (principally Sadduceans), Judas Iscariot, and the high priest, Caiaphas, and by the Apostle John. Annas did not appear before Pilate.

185:0.2 (1987.2) Pilate was up and ready to receive this group of early morning callers, having been informed by those who had secured his consent, the previous evening, to employ the Roman soldiers in arresting the Son of Man, that Jesus would be early brought before him. This trial was arranged to take place in front of the praetorium, an addition to the fortress of Antonia, where Pilate and his wife made their headquarters when stopping in Jerusalem.

185:0.3 (1987.3) Though Pilate conducted much of

집무실 안에서 했지만, 공개적인 심문은 정문으로 연결된 바깥 계단 위에서 행해졌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양보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준비일에 누룩을 사용할 지도 모르는, 그 어떤 이방인 건물에도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을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로서 오후의 감사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가 진 뒤에, 그들이 유월절 저녁 만찬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전에, 그들이 정화 예식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합법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한 어떤 구애도 받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례적인 청결과 전통적인 규칙에 대한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따랐다. 그리고 시간과 영원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인간 행복에 대한 사소한 일들에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신성한 특성의 높고 거룩한 의무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직 이 유대인들만은 아니다.

제 1 장. 본디오 빌라도

만일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식민지들의 합리적인 좋은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가 그를 10년 동안이나 유대 지방의 대리인으로 남아있게 거의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꽤 좋은 행정-관리자이기는 하였으나, 도덕적으로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임무의 특성을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 도량이 넓지 못하였다. 그는 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종교,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수백만의 히브리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 신앙의 성지로 바라보고 있고 산헤드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움은 일찍부터 현시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로마 식민지들 중에서, 유대 지역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곳은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납득한 적이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 거의 치명적이고 자멸할만한 일련의 실책을 범하였다. 그리고 이 실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킬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빌라도는 곧 승복하였다. 행정관의 이러한 명백한 우유부단, 혹은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주로 그가 유대인들과 가졌던 몇 번의 논쟁들에 대한 기억에서 기인되었으며, 그 때마다 그들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티베리우스로부터 자기 지위를 막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총독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이 사실을 이용하

Jesus' examination within the praetorium halls, the public trial was held outside on the steps leading up to the main entrance. This was a concession to the Jews, who refused to enter any gentile building where heaven might be used on this day of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Such conduct would not only render them ceremonially unclean and thereby debar them from partaking of the afternoon feast of thanksgiving but would also necessitate their subjection to purification ceremonies after sundown, before they would be eligible to partake of the Passover supper.

185:0.4 (1987.4) Although these Jews were not at all bothered in conscience as they intrigued to effect the judicial murder of Jesus, they were nonetheless scrupulous regarding all these matters of ceremonial cleanness and traditional regularity. And these Jews have not been the only ones to fail in the recognition of high and holy obligations of a divine nature while giving meticulous attention to things of trifling importance to human welfare in both time and eternity.

1. PONTIUS PILATE

185:1.1 (1987.5) If Pontius Pilate had not been a reasonably good governor of the minor provinces, Tiberius would hardly have suffered him to remain as procurator of Judea for ten years. Although he was a fairly good administrator, he was a moral coward. He was not a big enough man to comprehend the nature of his task as governor of the Jews. He failed to grasp the fact that these Hebrews had a *real* religion, a faith for which they were willing to die, and that millions upon millions of them, scattered here and there throughout the empire, looked to Jerusalem as the shrine of their faith and held the Sanhedrin in respect as the highest tribunal on earth.

185:1.2 (1988.1) Pilate did not love the Jews, and this deep-seated hatred early began to manifest itself. Of all the Roman provinces, none was more difficult to govern than Judea. Pilate never really understood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Jews and, therefore, very early in his experience as governor, made a series of almost fatal and well-nigh suicidal blunders. And it was these blunders that gave the Jews such power over him. When they wanted to influence his decisions, all they had to do was to threaten an uprising, and Pilate would speedily capitulate. And this apparent vacillation, or lack of moral courage, of the procurator was chiefly due to the memory of a number of controversies he had had with the Jews and because in each instance they had worsted him. The Jews knew that Pilate was afraid of them, that he feared for his position before Tiberius, and they employed this knowledge to the great disadvantage of the governor on

였다.

유대인들에 대한 빌라도의 미움은 몇 차례의 유감스러운 충돌의 결과로 발생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상 경배를 상징하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선입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전임자의 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실천 관행에 따라, 자기 군인들이 시저의 형상을 새긴 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5일 동안이나 빌라도 앞에 나와 군기(軍旗)에서 이 형상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사정없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으며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빌라도는 자신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전적인 태도로 자기 처택 앞에 몰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말을 전하였을 때 그는 크게 당황하였다. 그 때 빌라도는 자신이 기꺼이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하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굴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의 군기에서 형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그가 집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그의 약점을 발견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영도자들의 변덕에, 자신이 점점 더 넓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잃은 위신을 되찾기로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 벽에 황제의 방패들을 걸어 놓았는데, 그것은 시저 경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였다. 유대인들이 항의할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항의를 거절하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상소하였고, 황제는 감정을 해치는 그 방패들을 치우라고 즉각적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그 전보다도 더욱 존경심이 낮아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큰 종교적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가 감히 성전 재정에서 돈을 취하려고 한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성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빌라도의 이러한 주재님은 통치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20회 이상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많은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심각한 소요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갈릴리인들이 학살을 당하였는데, 심지어는 제단에서 경배하다가 학살되기도 하였다.

우유부단한 이 로마인 통치자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지만, 그가 결국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이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게리짐 산으로 군대를 끌고 간 거짓 메시아의 자칭(自稱)과 관련된 불필요한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결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numerous occasions.

185:1.3 (1988.2) Pilate's disfavor with the Jews came about as a result of a number of unfortunate encounters. First, he failed to take seriously their deep-seated prejudice against all images as symbols of idol worship. Therefore he permitted his soldiers to enter Jerusalem without removing the images of Caesar from their banners, as had been the practice of the Roman soldiers under his predecessor. A large deputation of Jews waited upon Pilate for five days, imploring him to have these images removed from the military standards. He flatly refused to grant their petition and threatened them with instant death. Pilate, himself being a skeptic, did not understand that men of strong religious feelings will not hesitate to die for their religious convictions; and therefore was he dismayed when these Jews drew themselves up defiantly before his palace, bowed their faces to the ground, and sent word that they were ready to die. Pilate then realized that he had made a threat which he was unwilling to carry out. He surrendered, ordered the images removed from the standards of his soldiers in Jerusalem, and found himself from that day on to a large extent subject to the whims of the Jewish leaders, who had in this way discovered his weakness in making threats which he feared to execute.

185:1.4 (1988.3) Pilate subsequently determined to regain this lost prestige and accordingly had the shields of the emperor, such as were commonly used in Caesar worship, put up on the walls of Herod's palace in Jerusalem. When the Jews protested, he was adamant. When he refused to listen to their protests, they promptly appealed to Rome, and the emperor as promptly ordered the offending shields removed. And then was Pilate held in even lower esteem than before.

185:1.5 (1988.4) Another thing which brought him into great disfavor with the Jews was that he dared to take money from the temple treasury to pay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queduct to provide increased water supply for the millions of visitors to Jerusalem at the times of the great religious feasts. The Jews held that only the Sanhedrin could disburse the temple funds, and they never ceased to inveigh against Pilate for this presumptuous ruling. No less than a score of riots and much bloodshed resulted from this decision. The last of these serious outbreaks had to do with the slaughter of a large company of Galileans even as they worshiped at the altar.

185:1.6 (1988.5) It is significant that, while this vacillating Roman ruler sacrificed Jesus to his fear of the Jews and to safeguard his personal position, he finally was deposed as a result of the needless slaughter of Samaritans in connection with the pretensions of a false Messiah who led troops to Mount Gerizim, where he claimed the

던 일은 의의(意義)깊은 것 이었다; 그가 약속한 대로, 거룩한 그릇들이 묻혀있다는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었다. 이 에피소드의 결과로, 시리아의 영주는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하였다. 티베리우스는 빌라도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죽었으며, 그는 유대 지방의 행정관으로 재임명 받지 못하였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유감스러운 비난에서 결코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새 황제의 눈에서도 벗어나고, 퇴직하여 로잔 지방으로 갔으며, 나중에 그곳에서 자살하였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는, 왕국 복음을 믿은 페니키아인이었던 그녀의 시중드는-하녀의 말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다. 클라우디아는 빌라도가 죽은 후에 그 기쁜 소식의 전파로 두드러지게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일들 대부분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 오전에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감히 빌라도에게 지시할 수 있었는지—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6시에 일어나도록 함—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자기들의 요구를 그가 거절할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서슴없이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 통치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덕망 있는 로마 총독이었다면, 그들의 허위 고발에 그 자신이 결백하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러한 죄에 굶주린 종교적 광신자들이 죽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정부는 2-등급의 빌라도를 보내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도록 하였을 때, 이미 큰 실책, 세상의 관련 사들 중에서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티베리우스는 제국 안에서 가장 힘 있는 지방 행정-관리자를 보냈어야 했다.

temple vessels were buried; and fierce riots broke out when he failed to reveal the hiding place of the sacred vessels, as he had promised. As a result of this episode, the legatus of Syria ordered Pilate to Rome. Tiberius died while Pilate was on the way to Rome, and he was not reappointed as procurator of Judea. He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regretful condemnation of having consented to the crucifixion of Jesus. Finding no favor in the eyes of the new emperor, he retired to the province of Lausanne, where he subsequently committed suicide.

185:1.7 (1989.1) Claudia Procula, Pilate's wife, had heard much of Jesus through the word of her maid-in-waiting, who was a Phoenician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fter the death of Pilate, Claudia became prominently identified with the spread of the good news.

185:1.8 (1989.2) And all this explains much that transpired on this tragic Friday forenoon.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e Jews presumed to dictate to Pilate — to get him up at six o'clock to try Jesus — and also why they did not hesitate to threaten to charge him with treason before the emperor if he dared to refuse their demands for Jesus' death.

185:1.9 (1989.3) A worthy Roman governor who had not become disadvantageously involved with the rulers of the Jews would never have permitted these bloodthirsty religious fanatics to bring about the death of a man whom he himself had declared to be innocent of their false charges and without fault. Rome made a great blunder, a far-reaching error in earthly affairs, when she sent the second-rate Pilate to govern Palestine. Tiberius had better have sent to the Jews the best provincial administrator in the empire.

제 2 장.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예수

예수와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모였을 때, 그 로마 총독이 나와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고발을 가져오 왔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를 암살하자고 주장하였던 사두개인들과 평의원들은 빌라도에게로 가서, 어떤 고소 이유도 가진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선고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회원들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대답하였다: “만일 이 사람이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께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고소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지난 밤 내내 그의 죄에 대하여 심의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정확한 고소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왜 이 사

2. JESUS APPEARS BEFORE PILATE

185:2.1 (1989.4) When Jesus and his accusers had gathered in front of Pilate's judgment hall, the Roman governor came out and, addressing the company assembled, asked, “What accusation do you bring against this fellow?” The Sadducees and councilors who had taken it upon themselves to put Jesus out of the way had determined to go before Pilate and ask for confirmation of the death sentence pronounced upon Jesus, without volunteering any definite charge. Therefore did the spokesman for the Sanhedrist court answer Pilate: “If this man were not an evildoer, we sh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to you.”

185:2.2 (1989.5) When Pilate observed that they were reluctant to state their charges against Jesus, although he knew they had been all night engaged in deliberations regarding his guilt, he answered them: “Since you have not agreed on any definite

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 자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느냐?”

그러자 산헤드린 법정의 사무관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형에 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소란하게 하는 이 자는 그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에 대하여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을 허락 받기 위하여 당신에게 왔습니다.

모든 것을 모면하는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 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회원들의 증오심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공정성과 명예 그리고 위엄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들 지배받는 시민들이 자기들 지방의 총독 앞에 나와서, 한 사람에 대하여,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잘 제공하기도 전에, 더구나 그에 대한 분명한 죄목도 내밀지도 않은 채, 처형을 선포하라 요구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빌라도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행한 것을 조금 알고 있었으며, 예수께 씌우려고 하는 고소 내용은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이리라 추측하였으므로; 그는 이 사건을 그들 자신들의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되돌려 보내고자 하였다. 또 한편, 빌라도는 그들이 지독한 시기심의 증오로 경멸하게 된 자기 동족의 한 명에 대하여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집행하는 권한이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부분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후에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 잘 성숙된 신자가 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빌라도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은 것은, 자정이 되기 직전인 불과 몇 시간 전이었으며, 예수를 비밀리에 체포하는 일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린 후였다.

빌라도는 이 심문을 연기시키고 싶었지만, 유대인 영도자들이 이 소송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때가 유월절 준비일의 오전 시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일이 되는, 이 날은 휴식과 경배의 유대인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들 유대인들의 접근에서 우리나라오는 불경스런 태도에 심히 예민한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죄수에 대한 그들의 고소장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잠시 기다려 본 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재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를 심문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 말을

charges, why do you not take this man and pass judgment on him in accordance with your own laws?”

185:2.3 (1989.6) Then spoke the clerk of the Sanhedrin court to Pilate: “It is not lawful for us to put any man to death, and this disturber of our nation is worthy to die for the things which he has said and done. Therefore have we come before you for confirmation of this decree.”

185:2.4 (1989.7) To come before the Roman governor with this attempt at evasion discloses both the ill-will and the ill-humor of the Sanhedrists toward Jesus as well as their lack of respect for the fairness, honor, and dignity of Pilate. What effrontery for these subject citizens to appear before their provincial governor asking for a decree of execution against a man before affording him a fair trial and without even preferring definite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185:2.5 (1989.8) Pilate knew something of Jesus' work among the Jews, and he surmised that the charges which might be brought against him had to do with infringements of the Jewish ecclesiastical laws; therefore he sought to refer the case back to their own tribunal. Again, Pilate took delight in making them publicly confess that they were powerless to pronounce and execute the death sentence upon even one of their own race whom they had come to despise with a bitter and envious hatred.

185:2.6 (1990.1) It was a few hours previously, shortly before midnight and after he had granted permission to use Roman soldiers in effecting the secret arrest of Jesus, that Pilate had heard further concerning Jesus and his teaching from his wife, Claudia, who was a partial convert to Judaism, and who later on became a full-fledged believer in Jesus' gospel.

185:2.7 (1990.2) Pilate would have liked to postpone this hearing, but he saw the Jewish leaders were determined to proceed with the case. He knew that this was not only the forenoon of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but that this day, being Friday, was also the preparation day for the Jewish Sabbath of rest and worship.

185:2.8 (1990.3) Pilate, being keenly sensitive to the disrespectful manner of the approach of these Jews, was not willing to comply with their demands that Jesus be sentenced to death without a trial. When, therefore, he had waited a few moments for them to present their charges against the prisoner, he turned to them and said: “I will not sentence this man to death without a trial; neither will I consent to examine him until you have presented your charges against him in writing.”

185:2.9 (1990.4) When the high priest and the others heard Pilate say this, they signaled to the clerk of

듣고, 법정 사무관에게 손짓하였으며, 그가 예수에 대한 기소문을 빌라도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소장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산헤드린 법정은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민족을 선동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임을 발견하였다:

1. 우리 민족을 사교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반란으로 선동하였음.

2. 국민들이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시켰음.

3.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며, 그리고 새로운 왕국의 건립을 가르침.”

예수는 이 고소 내용들의 어떤 것도 정식으로 재판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적으로 선고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들 고소 내용들이 처음 낭독될 때에는 그는 듣지 못하였지만,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집정관 관저에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으며, 이들 고소 내용들이 예수가 듣는 가운데서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는 이러한 죄목들을 들었을 때, 그의 고발인들과 요한 세베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전의 유대인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었음을 잘 아셨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고소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빌라도가 그에게 명하였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는 모든 것들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놀랐으며 예수의 침묵과 대범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그 죄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적(私的)으로 그를 심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피에 굶주린 고소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침묵으로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슬픔이 가득찬 애정의 빛을 띠고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는 광경에서, 마음에서는 혼란스러웠고, 그의 가슴에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영에서는 강력한 동요가 일어났다.

제 3 장.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바깥 복도에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 방으로 예수와 요한 세베대만을 데리고 갔으며, 죄수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빌라도는 그에 대한 첫 번째 기소 항목; 민족을 사교에 빠뜨리고 반란을 선동한다는 내용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에게 확인하면서 예수와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었다, “네가 시저에게 내세금을 거부하라고 한번이라도 가르친 적이 있는냐?” 예수는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나, 아니면 내 가르침을 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라.” 그러자 빌라도가 세금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요한에게 질문하였으며, 요한은 주(主)의 가르침에 대해 증언하였고 예수와 사도들이 시저와 성전 양쪽 모두에 세금을 물었음을

the court, who then handed to Pilate the written charges against Jesus. And these charges were:

185:2.10 (1990.5) “We find in the Sanhedrist tribunal that this man is an evildoer and a disturber of our nation in that he is guilty of:

185:2.11 (1990.6) “1. Perverting our nation and stirring up our people to rebellion.

185:2.12 (1990.7) “2. Forbidding the people to pay tribute to Caesar.

185:2.13 (1990.8) “3. Calling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and teaching the founding of a new kingdom.”

185:2.14 (1990.9) Jesus had not been regularly tried nor legally convicted on any of these charges. He did not even hear these charges when first stated, but Pilate had him brought from the praetorium, where he was in the keeping of the guards, and he insisted that these charges be repeated in Jesus' hearing.

185:2.15 (1990.10) When Jesus heard these accusations, he well knew that he had not been heard on these matters before the Jewish court, and so did John Zebedee and his accusers, but he made no reply to their false charges. Even when Pilate bade him answer his accusers, he opened not his mouth. Pilate was so astonished at the unfairness of the whole proceeding and so impressed by Jesus' silent and masterly bearing that he decided to take the prisoner inside the hall and examine him privately.

185:2.16 (1990.11) Pilate was confused in mind, fearful of the Jews in his heart, and mightily stirred in his spirit by the spectacle of Jesus' standing there in majesty before his bloodthirsty accusers and gazing down on them, not in silent contempt, but with an expression of genuine pity and sorrowful affection.

3. THE PRIVATE EXAMINATION BY PILATE

185:3.1 (1991.1) Pilate took Jesus and John Zebedee into a private chamber, leaving the guards outside in the hall, and requesting the prisoner to sit down, he sat down by his side and asked several questions. Pilate began his talk with Jesus by assuring him that he did not believe the first count against him: that he was a perverter of the nation and an inciter to rebellion. Then he asked, “Did you ever teach that tribute should be refused Caesar?” Jesus, pointing to John, said, “Ask him or any other man who has heard my teaching.” Then Pilate questioned John about this matter of tribute, and John testified concerning his Master's teaching and explained that Jesus and his apostles paid taxes both to Caesar and to the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요한에게 질문을 마친 후에 “내가 너와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이 문제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께 더 질문하기 위해 돌아서서 말했다; “자, 이제는 너에 대한 세 번째 죄목에 대한 것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음성이 사뭇 진지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행정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빌라도여, 당신이 스스로 이것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로 부터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냐?” 그러자 조금 분개하는 음성으로 총독이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동족인 사제들이 너를 끌고 와서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내게 요청하였다. 나는 그들의 고소 내용들이 정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며, 나는 단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려는 것이다. 내게 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애썼느냐?”

그러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말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 네 앞에 이러한 것들에 묶인 채로 있는 나의 현존이, 내 왕국이 영적 영토라는 것,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에 의해 하느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제신분과 같은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네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그러한 어떤 왕이다, 내 왕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의 가족이며, 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주어야만 했고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를 증명까지 해야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반은 조롱으로 그리고 반은 진정으로 말했다, “진리, 무엇이 진리이냐—누가 알겠는가?”

빌라도는 예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영적 왕국의 본성을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죄수가 죽음으로 값을 치워야 할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신하였다. 온화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러나 장엄하고 그리고 깨끗한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권좌에 올라서려는 갈망을 가진 거칠고 위험한 혁명가가 아님을 확신하는 데에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직접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다. 빌라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곧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스토아 학자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그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칭했을 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을 자신이 조금은 납득한다고 생각하였다. 빌라도는 예

temple. When Pilate had questioned John, he said, “See that you tell no man that I talked with you.” And John never did reveal this matter.

185:3.2 (1991.2) Pilate then turned around to question Jesus further, saying: “And now about the third accusation against you,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Since there was a tone of possibly sincere inquiry in Pilate’s voice, Jesus smiled on the procurator and said: “Pilate, do you ask this for yourself, or do you take this question from these others, my accusers?” Whereupon, in a tone of partial indignation, the governor answered: “Am I a Jew? Your own people and the chief priests delivered you up and asked me to sentence you to death. I question the validity of their charges and am only trying to find out for myself what you have done. Tell me, have you said that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and have you sought to found a new kingdom?”

185:3.3 (1991.3) Then said Jesus to Pilate: “Do you not perceive tha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surely would my disciple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Jews. My presence here before you in these bonds is sufficient to show all men that my kingdom is a spiritual dominion, even the brotherhood of men who, through faith and by love, have become the sons of God. And this salvation is for the gentile as well as for the Jew.”

185:3.4 (1991.4) “Then you are a king after all?” said Pilate. And Jesus answered: “Yes, I am such a king, and my kingdom is the family of the faithful sons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For this purpose was I born into this world, even that I should show my Father to all men and bear witness to the truth of God. And even now do I declare to you that every one who loves the truth hears my voice.”

185:3.5 (1991.5) Then said Pilate, half in ridicule and half in sincerity, “Truth, what is truth — who knows?”

185:3.6 (1991.6) Pilate was not able to fathom Jesus’ words, nor was he abl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is spiritual kingdom, but he was now certain that the prisoner had done nothing worthy of death. One look at Jesus, face to face, was enough to convince even Pilate that this gentle and weary, but majestic and upright, man was no wild and dangerous revolutionary who aspired to establish himself on the temporal throne of Israel. Pilate thought he understood something of what Jesus meant when he called himself a king, for he was familiar with the teachings of the Stoics, who declared that “the wise man is king.” Pilate was thoroughly convinced that, instead of being a dangerous seditionmonger, Jesus was nothing

수가 위험한 선동자이기 보다는 무해한 공상가, 순진한 광신자에 불과하다고 속속들이 확신했다.

주(主)께 질문을 마친 후에,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과 사제들에게로 가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심문하였지만, 그에게서 아무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그를 반대하도록 만든 고발 내용들의 죄가 그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자유롭게 풀려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화가 나서 동요하였고, 예수를 죽여야한다고 격렬하게 고함을 질렀다; 산헤드린 회원 중 한 사람은 직접 빌라도 옆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민족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는 해독을-만드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오래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안다고 외치는 말들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는 그들의 말을 듣자, 그 때 유월절에 참여하여 그 성(城)안에 머물고 있는 헤롯에게로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은 그 사건을 결정짓는 책임을 회피하고, 최소한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생각했다. 또한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할권의 문제에 걸쳐있는 수많은 오해 때문에, 한 때 자신과 헤롯 사이에 존재했던 좋지 않은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갈릴리인이다. 그를 헤롯에게로 당장 데려가라, 그가 심문을 마치거든, 그가 발견한 것들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헤롯에게 데리고 갔다.

제 4 장. 헤롯 앞에서의 예수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에 들릴 때, 헤롯 대왕이 소유했던 옛 마카비 궁전에 머물렀으며, 예수가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끌려간 곳은 전에 왕의 처소였던 그 궁전이었고, 고소하는 자들과 더 많은 군중들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에 대하여 들었으며, 그에 대하여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날 금요일 아침에,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미아인은 그가 바로 공공 건물들 중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자기 아버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에 대해서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수년 전에 세포리에서 자기에게 항변하며 서 있었던 그 소년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헤롯이 알고 있는 한, 예수의 일이 주로 갈릴리에 집중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크게 염려한 적은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가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음으로, 헤롯은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면서도, 그를 보고 싶어 하였다. 헤롯은 예수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며,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싶어 하였다.

more or less than a harmless visionary, an innocent fanatic.

185:3.7 (1991.7) After questioning the Master, Pilate went back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accusers of Jesus and said: “I have examined this man, and I find no fault in him. I do not think he is guilty of the charges you have made against him; I think he ought to be set free.” And when the Jews heard this, they were moved with great anger, so much so that they wildly shouted that Jesus should die; and one of the Sanhedrists boldly stepped up by the side of Pilate, saying: “This man stirs up the people, beginning in Galilee and continuing throughout all Judea. He is a mischief-maker and an evildoer. You will long regret it if you let this wicked man go free.”

185:3.8 (1992.1) Pilate was hard pressed to know what to do with Jesus; therefore, when he heard them say that he began his work in Galilee, he thought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deciding the case, at least to gain time for thought, by sending Jesus to appear before Herod, who was then in the city attending the Passover. Pilate also thought that this gesture would help to antidote some of the bitter feeling which had existed for some time between himself and Herod, due to numerous misunderstandings over matters of jurisdiction.

185:3.9 (1992.2) Pilate, calling the guards, said: “This man is a Galilean. Take him forthwith to Herod, and when he has examined him, report his findings to me.” And they took Jesus to Herod.

4. JESUS BEFORE HEROD

185:4.1 (1992.3) When Herod Antipas stopped in Jerusalem, he dwelt in the old Maccabean palace of Herod the Great, and it was to this home of the former king that Jesus was now taken by the temple guards, and he was followed by his accusers and an increasing multitude. Herod had long heard of Jesus, and he was very curious about him. When the Son of Man stood before him, on this Friday morning, the wicked Idumean never for one moment recalled the lad of former years who had appeared before him in Sepphoris pleading for a just decision regarding the money due his father, who had been accidentally killed while at work on one of the public buildings. As far as Herod knew, he had never seen Jesus, although he had worried a great deal about him when his work had been centered in Galilee. Now that he was in custody of Pilate and the Judeans, Herod was desirous of seeing him, feeling secure against any trouble from him in the future. Herod had heard much about the miracles wrought by Jesus, and he really hoped to see him do some wonder.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으로 끌고 왔을 때, 그 영주는 그의 위엄 있는 외모와 평온하고 침착한 얼굴 표정에 깜짝 놀랐다. 약 15분 동안 헤롯이 예수께 질문하였지만, 주(主)는 대답하지 않았다. 헤롯은 감히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말하면서 조롱하였지만, 예수는 그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의 조롱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였으며, 그들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아들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들은 것들보다 더 많은 모든 것들을 들었다. 마침내, 예수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을 알고, 헤롯은 몇 차례 그를 희롱한 후에, 왕족이 입는 자주색 낡은 예복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은 유대 땅 안에서 예수를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를 마침내 갈릴리에서 몰아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죽이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결과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충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한 때 헤롯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요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때도 있었다. 감히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난하였던 노골적이고 성미가 사나운 그 선지자에 비하여, 예수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제 5 장. 빌라도에게 다시오신 예수

경비병들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그는 집정관 관저 앞에 있는 계단에 나와 있었고, 그곳에는 재판 석이 차려져 있었으며, 사제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을 불러 모은 후에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사교에 빠지게 하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내 앞에 데리고 왔다. 나는 그를 심문하였지만 그가 이 고소 내용대로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헤롯에게로 보냈으며, 그 영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 값을 치를만한 것이 없다. 만일 너희가 그에게 단련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풀어주기 전에 매질 할 용의가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석방을 반대하여 항의하는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는 바로 그 때에, 하나의 큰 무리의 군중들이 유월절 축제를 드높이는 한 명의 죄수 석방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집정관 관저로 행진하며 다가왔다. 한동안은, 로마 총독들은, 유월절 기간에 감옥에 갇힌 한 명의 죄수나 사형수가 사면(赦免) 받는 것을 민중들이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군중들이 수감자 한 명의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그의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수가 아주 최근에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았

185:4.2 (1992.4) When they brought Jesus before Herod, the tetrarch was startled by his stately appearance and the calm composure of his countenance. For some fifteen minutes Herod asked Jesus questions, but the Master would not answer. Herod taunted and dared him to perform a miracle, but Jesus would not reply to his many inquiries or respond to his taunts.

185:4.3 (1992.5) Then Herod turn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and, giving ear to their accusations, heard all and more than Pilate had listened to regarding the alleged evil doings of the Son of Man. Finally, being convinced that Jesus would neither talk nor perform a wonder for him, Herod, after making fun of him for a time, arrayed him in an old purple royal robe and sent him back to Pilate. Herod knew he had no jurisdiction over Jesus in Judea. Though he was glad to believe that he was finally to be rid of Jesus in Galilee, he was thankful that it was Pilate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putting him to death. Herod never had fully recovered from the fear that cursed him as a result of killing John the Baptist. Herod had at certain times even feared that Jesus was John risen from the dead. Now he was relieved of that fear since he observed that Jesus was a very different sort of person from the outspoken and fiery prophet who dared to expose and denounce his private life.

5. JESUS RETURNS TO PILATE

185:5.1 (1993.1) When the guards had brought Jesus back to Pilate, he went out on the front steps of the praetorium, where his judgment seat had been placed, and calling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Sanhedrists, said to them: “You brought this man before me with charges that he perverts the people, forbids the payment of taxes, and claims to be king of the Jews. I have examined him and fail to find him guilty of these charges. In fact, I find no fault in him. Then I sent him to Herod, and the tetrarch must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since he has sent him back to us. Certainly,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by this man. If you still think he needs to be disciplined, I am willing to chastise him before I release him.”

185:5.2 (1993.2) Just as the Jews were about to engage in shouting their protests against the release of Jesus, a vast crowd came marching up to the praetorium for the purpose of asking Pilate for the release of a prisoner in honor of the Passover feast. For some time it had been the custom of the Roman governors to allow the populace to choose some imprisoned or condemned man for pardon at the time of the Passover. And now that this crowd had come before him to ask for the release of a prisoner, and

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예수가 지금 재판석 앞에 있는 하나의 수감자이니, 이 무리에게 유월절에 배푸는 선한 뜻의 표시로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줄 것을 제안하면 그것으로써, 이 곤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무리들이 건물의 계단위로 닥쳐 올라오게 되면서,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자의 이름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어느 사제의 아들로써, 유명한 정치적 선동가요 잔인한 강도였으며, 여리고 길에서 저지른 강도와 살인 현장에서 최근에 체포된 자였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형 당하게 되어 있었다.

사제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끌고 왔으며, 특정한 기소 내용들로 인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려 하지만, 자기는 그를 죽일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일어서서 군중들에게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말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죄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살인자인 이 바라바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갈릴리의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사제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바라바, 바라바!” 그리고 사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시끄럽게 소리치며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에 속히 가담하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불과 며칠 전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외하였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사제들과 통치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고 빌라도 앞에서 생명이 달려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군중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낼 때 군중의 눈에는 예수가 영웅으로 비쳐질 수 있었겠지만, 적의 수중에서 반항도 하지 않고 목숨이 달린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사제들이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들의 살의와 증오심을 보았으며 그들의 선입견과 질투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고작해야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죄를 지은 이 사람보다도 오히려 살인자의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냐?”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 굴복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나타나 능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면서 자기들을 이방인의 속박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온화한 태도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선생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취급하려는 듯한 암시에 대하여, 그들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분개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실존함에 있어서

since Jesus had so recently been in great favor with the multitudes, it occurred to Pilate that he might possibly extricate himself from his predicament by proposing to this group that, since Jesus was now a prisoner before his judgment seat, he release to them this man of Galilee as the token of Passover good will.

185:5.3 (1993.3) As the crowd surged up on the steps of the building, Pilate heard them calling out the name of one Barabbas. Barabbas was a noted political agitator and murderous robber, the son of a priest, who had recently been apprehended in the act of robbery and murder on the Jericho road. This man was under sentence to die as soon as the Passover festivities were over.

185:5.4 (1993.4) Pilate stood up and explained to the crowd that Jesus had been brought to him by the chief priests, who sought to have him put to death on certain charges, and that he did not think the man was worthy of death. Said Pilate: “Which, therefore, would you prefer that I release to you, this Barabbas, the murderer, or this Jesus of Galilee?” And when Pilate had thus spok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anhedrin councilors all shout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Barabbas, Barabbas!” And when the people saw that the chief priests were minded to have Jesus put to death, they quickly joined in the clamor for his life while they loudly shouted for the release of Barabbas.

185:5.5 (1993.5) A few days before this the multitude had stood in awe of Jesus, but the mob did not look up to one who, having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now found himself in the custody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and on trial before Pilate for his life. Jesus could be a hero in the eyes of the populace when he was driving the money-changers and the traders out of the temple, but not when he was a nonresisting prisoner in the hands of his enemies and on trial for his life.

185:5.6 (1993.6) Pilate was angered at the sight of the chief priests clamoring for the pardon of a notorious murderer while they shouted for the blood of Jesus. He saw their malice and hatred and perceived their prejudice and envy. Therefore he said to them: “How could you choose the life of a murderer in preference to this man’s whose worst crime is that he figuratively calls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But this was not a wise statement for Pilate to make. The Jews were a proud people, now subject to the Roman political yoke but hoping for the coming of a Messiah who would deliver them from gentile bondage with a great show of power and glory. They resented, more than Pilate could know, the intimation that this meek-mannered teacher of strange doctrines, now under arrest and charged with crimes worthy of death,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king of the Jews.” They looked upon such a remark as an

거룩하고 명예롭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들었으므로, 그들 모두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를 고소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가 결백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 그가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그는 그가 무죄임을 선고하고 풀어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성난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두려웠으며, 그리고 그가 그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동안, 메신저 하나가 자신의 아내인 클라우디아로부터 봉합된 편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네 주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방금 전달 받은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다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개봉하여 읽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수라고 불리는 결백하고 의로운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난 밤 꿈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보낸 이 편지는 빌라도를 심히 당황하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아 문제의 판결을 지연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을 제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힘을 쓰기로 하고, 특사를 요청하는 군중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이 섞여있는 군중들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한 음성으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뒤섞여 있는 군중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부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재판관인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했다;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대해 증언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려는 말을 들은 그들은 오직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의 죄수 사면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면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너희가 유월절로 지키는 이러한 때에 이 죄수들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군중들은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라고 소리쳤다.

그 때 빌라도는 말했다; “내가 만일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준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리고 군중들은 다시 한 음성으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제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의 직접

insult to everything which they held sacred and honorable in their national existence, and therefore did they all let loose their mighty shouts for Barabbas's release and Jesus' death.

185:5.7 (1994.1) Pilate knew Jesus was innocent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him, and had he been a just and courageous judge, he would have acquitted him and turned him loose. But he was afraid to defy these angry Jews, and while he hesitated to do his duty, a messenger came up and presented him with a sealed message from his wife, Claudia.

185:5.8 (1994.1) Pilate indicated to those assembled before him that he wished to read the communication which he had just received before he proceeded further with the matter before him. When Pilate opened this letter from his wife, he read: “I pray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innocent and just man whom they call Jesus. I have suffered many things in a dream this night because of him.” This note from Claudia not only greatly upset Pilate and thereby delayed the adjudication of this matter, but it unfortunately also provided considerable time in which the Jewish rulers freely circulated among the crowd and urged the people to call for the release of Barabbas and to clamor for the crucifixion of Jesus.

185:5.9 (1994.2) Finally, Pilate addressed himself once more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hich confronted him, by asking the mixed assembly of Jewish rulers and the pardon-seeking crowd, “What shall I do with him who is called the king of the Jews?” And they all shouted with one accord, “Crucify him! Crucify him!” The unanimity of this demand from the mixed multitude startled and alarmed Pilate, the unjust and fear-ridden judge.

185:5.10 (1994.3) Then once more Pilate said: “Why would you crucify this man? What evil has he done? Who will come forward to testify against him?” But when they heard Pilate speak in defense of Jesus, they only cried out all the more, “Crucify him! Crucify him!”

185:5.11 (1994.4) Then again Pilate appealed to them regarding the release of the Passover prisoner, saying: “Once more I ask you, which of these prisoners shall I release to you at this, your Passover time?” And again the crowd shouted, “Give us Barabbas!”

185:5.12 (1994.5) Then said Pilate: “If I release the murderer, Barabbas, what shall I do with Jesus?” And once more the multitude shouted in unison, “Crucify him! Crucify him!”

185:5.13 (1994.6) Pilate was terrorized by the insistent

적인 지도아래 행동하고 있는 군중들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어도 한 번 더 군중들을 달래서 예수를 구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제 6 장.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금요일인 이 날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는 오직 예수의 적들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지지하는 그의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은 그가 지난밤에 체포되어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발각되어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숨어 있었다. 이 때 주(主)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군중들은 오직 그를 적이라고 맹세한 자들과 쉽게 선동되고 생각이 없는 경솔한 민중들뿐이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피를 보려고 외치는 그릇 인도된 폭도들의 외침을 무시하기가 두려워서, 그는 유대인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고 불법적인 처사였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오직 십자가형에 처할 죄수에게만 채찍질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비병들은 예수께 이러한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집정관 관저의 넓은 안마당으로 끌고 갔다. 비록 그의 적들은 이러한 채찍질을 보지 못하였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들이 이 악한 학대를 끝마치기 전에, 그는 채찍질하는 자들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도록 손짓했다. 채찍질하는 자들은 그를 나무에 묶어 놓고, 매듭지어져 있는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그에게 자주색 예복을 다시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이마에 씌웠다. 그리고 그의 손에 왕을 상징하는 홀(笏) 대신 마른 갈대를 쥐어준 후에, 그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그가 돌려보내기 전에 갈대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에 빌라도는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는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뒤섞여 있는 군중들에게 그를 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며, 그를 채찍으로 때렸으니, 풀어주겠다.”

나사렛 예수는, 그의 인자하게 보이는 이마를 찌르는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낡은 자주색의 왕족의 예복을 걸치고, 그렇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지고, 그리고 그의 자세는 괴로움과 비탄에 젖어서 숙여졌다. 그러나 격렬한 감정적 증오심의 희생자요, 종교적 편견에 노예가 된 자들의 무감각한 가슴에 호소할만한 것은, 그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광경이 광대한 우주 영역에 두루 강력한 전율이 일어나게 하였지만, 예수의 파멸을

clamor of the mob, acting under the direct leadership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councilors of the Sanhedrin; nevertheless, he decided upon at least one more attempt to appease the crowd and save Jesus.

6. PILATE'S LAST APPEAL

185:6.1 (1994.7) In all that is transpiring early this Friday morning before Pilate, only the enemies of Jesus are participating. His many friends either do not yet know of his night arrest and early morning trial or are in hiding lest they also be apprehended and adjudged worthy of death because they believe Jesus' teachings. In the multitude which now clamors for the Master's death are to be found only his sworn enemies and the easily led and unthinking populace.

185:6.2 (1995.1) Pilate would make one last appeal to their pity. Being afraid to defy the clamor of this misled mob who cried for the blood of Jesus, he ordered the Jewish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to take Jesus and scourge him. This was in itself an unjust and illegal procedure since the Roman law provided that only those condemned to die by crucifixion should be thus subjected to scourging. The guards took Jesus into the open courtyard of the praetorium for this ordeal. Though his enemies did not witness this scourging, Pilate did, and before they had finished this wicked abuse, he directed the scourgers to desist and indicated that Jesus should be brought to him. Before the scourgers laid their knotted whips upon Jesus as he was bound to the whipping post, they again put upon him the purple robe, and plaiting a crown of thorns, they placed it upon his brow. And when they had put a reed in his hand as a mock scepter, they knelt before him and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And they spit upon him and struck him in the face with their hands. And one of them, before they returned him to Pilate, took the reed from his hand and struck him upon the head.

185:6.3 (1995.2) Then Pilate led forth this bleeding and lacerated prisoner and, presenting him before the mixed multitude, said: "Behold the man! Again I declare to you that I find no crime in him, and having scourged him, I would release him."

185:6.4 (1995.3) There stood Jesus of Nazareth, clothed in an old purple royal robe with a crown of thorns piercing his kindly brow. His face was bloodstained and his form bowed down with suffering and grief. But nothing can appeal to the unfeeling hearts of those who are victims of intense emotional hatred and slaves to religious prejudice. This sight sent a mighty shudder through the realms of a vast universe, but it did not

이끌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자들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그들은 주(主)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 받았던 충격이 사라지자, 오직 더욱 큰 소리로 더욱 오랫동안 소리 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시하였던 호소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도대체 그가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나? 누가 그의 죄를 증명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와, 빌라도에게 올라가며, 성을 내면서 주장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리스 신화와 자기 아내의 편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이제는 예수가 하나의 신성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벌벌 떨었다. 그는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그의 팔을 붙들고 다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혼동에 빠졌고, 미신 때문에 곤혹스러워졌으며, 군중들의 고집스런 태도 때문에 초조했다.

제 7 장.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빌라도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예수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실제로 누구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이나?”

그러나 그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그를 다시 체찍질하도록 허락할 만큼 부당한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약하며 우유부단한 그 재판관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는 빌라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지만, 그에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느냐?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오직 저 높은 곳에서만 허락하실 수 있을 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네 죄가 크지 않다. 나를 배반한 자와 나를 너에게 넘겨 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와의 이러한 최후의 대화는 빌라도를 속속들이 소스라쳐 놀라게 하였다. 도덕적으로 겁이

touch the hearts of those who had set their minds to effect the destruction of Jesus.

185:6.5 (1995.4) When they had recovered from the first shock of seeing the Master's plight, they only shouted the louder and the longer,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185:6.6 (1995.5) And now did Pilate comprehend that it was futile to appeal to their supposed feelings of pity. He stepped forward and said: "I perceive that you are determined this man shall die, but what has he done to deserve death? Who will declare his crime?"

185:6.7 (1995.6) Then the high priest himself stepped forward and, going up to Pilate, angrily declared: "We have a sacred law, and by that law this man ought to die because he made himself out to be the Son of God." When Pilate heard this, he was all the more afraid, not only of the Jews, but recalling his wife's note and the Greek mythology of the gods coming down on earth, he now trembled at the thought of Jesus possibly being a divine personage. He waved to the crowd to hold its peace while he took Jesus by the arm and again led him inside the building that he might further examine him. Pilate was now confused by fear, bewildered by superstition, and harassed by the stubborn attitude of the mob.

7. PILATE'S LAST INTERVIEW

185:7.1 (1995.7) As Pilate, trembling with fearful emotion, sat down by the side of Jesus, he inquired: "Where do you come from? Really, who are you? What is this they say, that you are the Son of God?"

185:7.2 (1996.1) But Jesus could hardly answer such questions when asked by a man-fearing, weak, and vacillating judge who was so unjust as to subject him to flogging even when he had declared him innocent of all crime, and before he had been duly sentenced to die. Jesus looked Pilate straight in the face, but he did not answer him. Then said Pilate: "Do you refuse to speak to me? Do you not realize that I still have power to release you or to crucify you?" Then said Jesus: "You could have no power over me except it were permitted from above. You could exercise no authority over the Son of Man unless the Father in heaven allowed it. But you are not so guilty since you are ignorant of the gospel. He who betrayed me and he who delivered me to you, they have the greater sin."

185:7.3 (1996.2) This last talk with Jesus thoroughly frightened Pilate. This moral coward and judicial

많고 재판에 있어서 나약한 이 사람은 이제 예수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과 유대인 영도자들에 대한 필사자의 공포심의 이중 압박 밑에서 진통을 겪었다.

빌라도는 다시 군중들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오직 종교적으로 범죄 하였음을 확신한다.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 사람이 너희 전통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고 기대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거의 풀어주려고 하였을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겁한 로마 재판관에게 다가와서, 빌라도의 얼굴 앞에 보복하겠다는 손가락을 흔들면서, 군중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분노에 찬 단어들을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친구가 아니며, 황제가 모든 것을 알도록 내가 처리할 것이요.” 이러한 공개적인 위협은 빌라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개인적 행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다른 모든 고려 사항들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비겁한 충독은 예수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명령했다. 주(主)가 그들 앞에 거기 서자, 그는 그를 가리키며 조롱하며 말했다, “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그를 없애버리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러자 빌라도는 심히 빈정대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도 되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대답하였다, “그렇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우리에게 시저 외에 어떤 왕도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구할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기를 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8 장. 빌라도의 비극적인 굴복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화한 하느님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 그는 고소장 없이 체포되었다; 증거 없이 고발 되었다; 증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판결 없이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아무 결함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한 부당한 재판관에 의해서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로 생각했었다 하더라도, 그는 철저히 실패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왕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사제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시저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없다”고 했던 선언은, 생각없는 민중들까지도 충격이었지만, 군중들이 과감히 주(主)의 이유를 지지한다 해도, 이제 예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빌라도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소란의 위험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최근에 시저로부터 질책을 받아들이는 적이 있었으므로, 다시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명하였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과 대야를 가져오도록 명하였으며,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

weakling now labored under the double weight of the superstitious fear of Jesus and mortal dread of the Jewish leaders.

185:7.4 (1996.3) Again Pilate appeared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certain this man is only a religious offender. You should take him and judge him by your law. Why should you expect that I would consent to his death because he has clashed with your traditions?”

185:7.5 (1996.4) Pilate was just about ready to release Jesus when Caiaphas, the high priest, approached the cowardly Roman judge and, shaking an avenging finger in Pilate's face, said with angry words which the entire multitude could hear: “If you release this man, you are not Caesar's friend, and I will see that the emperor knows all.” This public threat was too much for Pilate. Fear for his personal fortunes now eclipsed all other considerations, and the cowardly governor ordered Jesus brought out before the judgment seat. As the Master stood there before them, he pointed to him and tauntingly said, “Behold your king.” And the Jews answered, “Away with him. Crucify him!” And then Pilate said, with much irony and sarcasm, “Shall I crucify your king?” And the Jews answered, “Yes, crucify him! We have no king but Caesar.” And then did Pilate realize that there was no hope of saving Jesus since he was unwilling to defy the Jews.

8. PILATE'S TRAGIC SURRENDER

185:8.1 (1996.5) Here stood the Son of God incarnate as the Son of Man. He was arrested without indictment; accused without evidence; adjudged without witnesses; punished without a verdict; and now was soon to be condemned to die by an unjust judge who confessed that he could find no fault in him. If Pilate had thought to appeal to their patriotism by referring to Jesus as the “king of the Jews,” he utterly failed. The Jews were not expecting any such a king. The declaration of the chief priests and the Sadducees, “We have no king but Caesar,” was a shock even to the unthinking populace, but it was too late now to save Jesus even had the mob dared to espouse the Master's cause.

185:8.2 (1996.6) Pilate was afraid of a tumult or a riot. He dared not risk having such a disturbance during Passover time in Jerusalem. He had recently received a reprimand from Caesar, and he would not risk another. The mob cheered when he ordered the release of Barabbas. Then he ordered a basin and some water, and there before the multitude he washed his hands, saying: “I am

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너희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라. 군인들이 그를 끌어낼 것이다.” 그러자 군중들은 환호하며 대답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시오.”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man. You are determined that he shall die, but I have found no guilt in him. See you to it. The soldiers will lead him forth.” And then the mob cheered and repli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제 186 편 십자가형이 있기 직전

⇨ 185

유랜시아 책

187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6 편 십자가형이 있기 직전

섹션

소개

제 1 장. 가롯 유다의 최후

제 2 장. 주(主)의 태도

제 3 장. 믿음직스러운 다윗 세베대

제 4 장. 십자가형을 위한 준비

제 5 장.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PAPER 186

JUST BEFORE THE CRUCIFIX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End of Judas Iscariot

2. The Master's Attitude

3. The Dependable David Zebedee

4. Preparation for the Crucifixion

5. Jesus' Death in Relation to the Passover

소개

예수와 고소자들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 출발할 때, 주(主)는 사도 요한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요한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다. 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를 모셔 오거라.” 이러한 주(主)의 요청을 들은 요한은, 그의 적들 속에 그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서둘러 베다니로 갔으며, 예수가 죽음에서 일으킨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의 온 가족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로 떠났다.

그 날 아침나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신저들이 예수의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예수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요한이 베다니에 도착하기 몇 분전까지 예수의 가족들은 베다니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가 한밤중에 체포되신 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한 세베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맏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 세베대와 함께 즉시 길을 떠났다. 마리아와 요한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미 골고다에 도착하였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에게로 요한과 함께 출발하였을 때, 예수의 여동생 룯은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뒤에 남아있기를 거절하였

INTRODUCTION

186:0.1 (1997.1) AS JESUS and his accusers started off to see Herod, the Master turned to the Apostle John and said: “John, you can do no more for me. Go to my mother and bring her to see me ere I die.” When John heard his Master's request, although reluctant to leave him alone among his enemies, he hastened off to Bethany, where the entire family of Jesus was assembled in waiting at the home of Martha and Mary, the sisters of Lazarus whom Jesus raised from the dead.

186:0.2 (1997.2) Several times during the morning, messengers had brought news to Martha and Mary concerning the progress of Jesus' trial. But the family of Jesus did not reach Bethany until just a few minutes before John arrived bearing the request of Jesus to see his mother before he was put to death. After John Zebedee had told them all that had happened since the midnight arrest of Jesus, Mary his mother went at once in the company of John to see her eldest son. By the time Mary and John reached the city, Jesus, accompanied by the Roman soldiers who were to crucify him, had already arrived at Golgotha.

186:0.3 (1997.3) When Mary the mother of Jesus started out with John to go to her son, his sister Ruth refused to remain behind with the rest of the

다.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그녀의 오빠 유다가 그녀와 같이 갔다. 주(主)의 나머지 가족들은 야고보의 지도 하에 베다니에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만형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 거의 메시간 다윗 세베대의 메신저들이 와서 보고하였다.

제 1 장. 가롯 유다의 최후

빌라도 앞에서 예수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주(主)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될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때는 같은 날인 금요일 아침 8시 반경이었다. 그 로마인들이 예수를 넘겨받자마자, 유대인 경비병들의 지도관은 부하들과 함께 행진하여 성전 본부로 돌아갔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 연관-동료들은 경비병들 바로 뒤에 쫓아갔으며, 그들이 항상 모이던 성전 안에 있는 다듬어진 돌로 지은 방으로 직행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산헤드린의 다른 회원들을 만났다. 가야바가 예수에 대한 심문과 유죄 판결에 관하여 산헤드린 의회에 보고하고 있을 때, 유다가 자기 주(主)를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에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유대인들이 모두 유다를 아주 싫어하였다; 오직 심히 업신여기는 심정으로 그 배반자를 바라보았다. 예수가 가야바 앞에서 예수의 재판기간 동안 그리고 빌라도 앞에 그가 출두해있는 동안, 유다는 자신의 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배반자로서의 그의 봉사의 대가(代價)로 받아들이게 될 그 보상에 대해서 약간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유대인 당국자들의 냉정함과 쌀쌀맞은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 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산헤드린 전체 모임에 초청되어, 그가 자기 나라에 봉사했다고 그 자신이 우쭐했던 위대한 업적의 상징으로 합당한 명예를 수여하면서 그가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 하나가 그에게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그 방 밖으로 불러내어 “유다여, 나는 예수를 판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보상금ियो.”라고 말했을 때, 자기중심적인 이 배반자의 놀라움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야바의 하인은 유다에게는 전 30개—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유다는 대경실색하여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그 방에 들어가려고 되돌아 달려갔으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는 산헤드린에게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이 유대인 통치

family. Since she was determined to accompany her mother, her brother Jude went with her. The rest of the Master's family remained in Bethany under the direction of James, and almost every hour the messengers of David Zebedee brought them reports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at terrible business of putting to death their eldest brother, Jesus of Nazareth.

1. THE END OF JUDAS ISCARIOT

186:1.1 (1997.4) It was about half past eight o'clock this Friday morning when the hearing of Jesus before Pilate was ended and the Master was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Roman soldiers who were to crucify him. As soon as the Romans took possession of Jesus, the captain of the Jewish guards marched with his men back to their temple headquarters. The chief priest and his Sanhedrist associates followed close behind the guards, going directly to their usual meeting place in the hall of hewn stone in the temple. Here they found many other members of the Sanhedrin waiting to learn what had been done with Jesus. As Caiaphas was engaged in making his report to the Sanhedrin regarding the trial and condemnation of Jesus, Judas appeared before them to claim his reward for the part he had played in his Master's arrest and sentence of death.

186:1.2 (1997.5) All of these Jews loathed Judas; they looked upon the betrayer with only feelings of utter contempt. Throughout the trial of Jesus before Caiaphas and during his appearance before Pilate, Judas was pricked in his conscience about his traitorous conduct. And he was also beginning to become somewhat disillusioned regarding the reward he was to receive as payment for his services as Jesus' betrayer. He did not like the coolness and aloofness of the Jewish authorities; nevertheless, he expected to be liberally rewarded for his cowardly conduct. He anticipated being called before the full meeting of the Sanhedrin and there hearing himself eulogized while they conferred upon him suitable honors in token of the great service which he flattered himself he had rendered his nation. Imagine, therefore, the great surprise of this egotistic traitor when a servant of the high priest, tapping him on the shoulder, called him just outside the hall and said: "Judas, I have been appointed to pay you for the betrayal of Jesus. Here is your reward." And thus speaking, the servant of Caiaphas handed Judas a bag containing thirty pieces of silver — the current price of a good, healthy slave.

186:1.3 (1998.1) Judas was stunned, dumfounded. He rushed back to enter the hall but was debarred by the doorkeeper. He wanted to appeal to the Sanhedrin, but they would not admit him. Judas could not believe that these rulers of the Jews

자들이 그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主)를 배반하게 하고 나서 은전 30개로 보상하려는 처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굴욕과 환멸을 느꼈으며 철저히 낙담하였다. 그는 낫을 잃은 채로 성전에서 걸어 나갔다. 그는 무의식중에 그 돈주머니를 자기 전대에 넣었으며, 그 전대는 사도들의 자금을 간직하는 주머니를 오랫동안 넣고 다녔던 것이었다. 그는 십자가형을 지켜보기 위하여 가고 있는 군중들의 뒤를 따라 도시를 방황하며 돌아다녔다.

유다는 예수가 못박혀 있는 십자가를 그들이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으며, 이것을 본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를 밀고 들어가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는 산헤드린의 현존 안에 서게 되었다. 그 배반자는 숨이 턱까지 찼고 거의 미친 상태가 되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배반한 죄를 범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무례를 범했다. 너희는 나를 모욕했다. 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돈—한 사람의 노예에 대한 값—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한다; 여기 너희들 돈이 있다. 나는 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유다의 말을 들은 유대인 통치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유다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그 방에서 나가라고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네 주(主)는 이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말이다.

산헤드린의 회의장에서 나온 유다는 은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성전 마루 위에 뿌려버렸다. 성전을 떠난 그 배반자는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다. 유다는 이제 죄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하는 체험을 두루 통과하고 있었다. 그릇된 행동의 모든 매력과 매혹 그리고 도취의 상태가 사라졌다. 이제 그 행악자는 홀로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실망에 빠진 혼에 대한 심판 평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죄를 범할 때에는 매혹을 느끼고 모험적이지만, 이제 적나라하고 낭만이 없어진 사실들의 수확물과 직면해야만 한다.

한 때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의 대사였던 그는 이제 버림받고 고독한 상태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의 절망감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거의 절대적인 상태였다. 도시를 빠져나가 성벽 밖에 있는 길을 지나다가, 힌놈의 골짜기의 가파른 절벽에 다다르자, 낭떠러지 바위를 기어 올라갔으며, 외투 허리띠를 풀어서 한 쪽 끝은 작은 나뭇가지에 매고, 다른 쪽 끝을 자기 목에 감은 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떨리는 손으로 묶었던 매듭이 풀어졌으며, 그 배반자의 몸은 아래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 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would allow him to betray his friends and his Master and then offer him as a reward thirty pieces of silver. He was humiliated, disillusioned, and utterly crushed. He walked away from the temple, as it were, in a trance. He automatically dropped the money bag in his deep pocket, that same pocket wherein he had so long carried the bag containing the apostolic funds. And he wandered out through the city after the crowds who were on their way to witness the crucifixions.

186:1.4 (1998.2) From a distance Judas saw them raise the cross piece with Jesus nailed thereon, and upon sight of this he rushed back to the temple and, forcing his way past the doorkeeper, found himself standing in the presence of the Sanhedrin, which was still in session. The betrayer was well-nigh breathless and highly distraught, but he managed to stammer out these words: “I have sinned in that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You have insulted me. You have offered me as a reward for my service, money — the price of a slave. I repent that I have done this; here is your money. I want to escape the guilt of this deed.”

186:1.5 (1998.3) When the rulers of the Jews heard Judas, they scoffed at him. One of them sitting near where Judas stood, motioned that he should leave the hall and said: “Your Master has already been put to death by the Romans, and as for your guilt, what is that to us? See you to that — and begone!”

186:1.6 (1998.4) As Judas left the Sanhedrin chamber, he removed the thirty pieces of silver from the bag and threw them broadcast over the temple floor. When the betrayer left the temple, he was almost beside himself. Judas was now pass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realization of the true nature of sin. All the glamor, fascination, and intoxication of wrongdoing had vanished. Now the evildoer stood alone and face to face with the judgment verdict of his disillusioned and disappointed soul. Sin was bewitching and adventurous in the committing, but now must the harvest of the naked and unromantic facts be faced.

186:1.7 (1998.5) This onetime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now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forsaken and alone. His despair was desperate and well-nigh absolute. On he journeyed through the city and outside the walls, on down into the terrible solitude of the valley of Hinnom, where he climbed up the steep rocks and, taking the girdle of his cloak, fastened one end to a small tree, tied the other about his neck, and cast himself over the precipice. Ere he was dead, the knot which his nervous hands had tied gave way, and the betrayer's body was dashed to pieces as it fell on the jagged rocks below.

제 2 장. 주(主)의 태도

예수가 체포되자, 그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의 일이 완결되었음을 아셨다. 그는 그가 처하게 될 죽음의 종류를 충분히 납득하였으며,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절차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예수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고소에 대하여 답변을 거절하였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대답을 이끌어낸 한 가지 예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 임무의 신성(神性)과 그 본질에 관계된 것이었다.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틀림없이 대답하였다. 호기심으로 대하는 사악한 헤롯의 현존 안에 있을 때는 답변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나 혹은 다른 진지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만 대답하였다. 예수는 돼지 앞에 자신들의 진주를 던지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이제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이때 그의 행위는, 신성한 본성의 장엄한 침묵과 근엄한 위엄이 동반된 인간 본성의 인내하는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기소 내용과 관련된 어떤 질문—그가 총독의 사법권에 속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라도 빌라도와 기꺼이 토론할 의사가 있었다.

예수는 다른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인간 사건들의 과정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사회적으로 근시안적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자신의 동료 필사자들이 꾸미는 음모들에 설득력 있는 화술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순전히 인간의 힘까지도 사용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비록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인간 생애는 자신이 창조하고 끝없이 유지하는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근시안적인 이 유대인들은 주(主)를 죽여야 한다고 보기 흉하게 외쳐대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한 나라—그의 땅위의 아버지의 동족인, 나라의 죽어있는 모습을 장엄한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계셨다.

예수는 계속적이고 근거 없는 모욕에 직면하여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침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의 인간 성격을 습득하였다. 그는 위협을 받으실 수 없었다. 안나스의 하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하여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부르는 것의 타당성을 제안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빌라도 앞에서의 그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 무리들은 그 장면에

2. THE MASTER'S ATTITUDE

186:2.1 (1999.1) When Jesus was arrested, he knew that his work on earth,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was finished. He fully understood the sort of death he would die, and he was little concerned with the details of his so-called trials.

186:2.2 (1999.2) Before the Sanhedrist court Jesus declined to make replies to the testimony of perjured witnesses. There was but one question which would always elicit an answer, whether asked by friend or foe, and that was the one concerning the nature and divinity of his mission on earth. When asked if he were the Son of God, he unfailingly made reply. He steadfastly refused to speak when in the presence of the curious and wicked Herod. Before Pilate he spoke only when he thought that Pilate or some other sincere person might be helped to a better knowledge of the truth by what he said. Jesus had taught his apostles the uselessness of casting their pearls before swine, and he now dared to practice what he had taught. His conduct at this time exemplified the patient submission of the human nature coupled with the majestic silence and solemn dignity of the divine nature. He was altogether willing to discuss with Pilate any question related to the political charges brought against him — any question which he recognized as belonging to the governor's jurisdiction.

186:2.3 (1999.3) Jesus was convinced that it was the will of the Father that he submit himself to the natural and ordinary course of human events just as every other mortal creature must, and therefore he refused to employ even his purely human powers of persuasive eloquence to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machinations of his socially nearsighted and spiritually blinded fellow mortals. Although Jesus lived and died on Urantia, his whole human career, from first to last, was a spectacle designed to influence and instruct the entire universe of his creation and unceasing upholding.

186:2.4 (1999.4) These shortsighted Jews clamored unseemly for the Master's death while he stood there in awful silence looking upon the death scene of a nation — his earthly father's own people.

186:2.5 (1999.5) Jesus had acquired that type of human character which could preserve its composure and assert its dignity in the face of continued and gratuitous insult. He could not be intimidated. When first assaulted by the servant of Annas, he had only suggested the propriety of calling witnesses who might duly testify against him.

186:2.6 (1999.6) From first to last, in his so-called trial before Pilate, the onlooking celestial hosts could

대하여 “예수 앞에서 재판 받는 빌라도”라는 표현으로 우주에 널리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야마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예수는 서슴없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한 근거로 필요로 했던 것을 그 자신의 증언으로 마련해 주었다.

주(主)는 그의 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빌라도의 좋은-의미였지만, 반신반의로 하는 노력에는 최소한의 관심도 결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빌라도를 불쌍하게 보았으며 그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려고 유대인들에게 호소할 로마 총독의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동적이었다. 비참한 시련을 겪는 동안 내내 그는 소박한 존엄과 허세 없는 장엄함으로 참아내었다. 그는 그들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나 물었을 때, 자신을 죽이기로 나선 살인자들에게 드리워진 불성실에 그 어떤 크기의 반향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거부하기로 선택하긴 했지만, 그가 영적 감각에서도 그들에게 실제적 민족의 영도자관계를 마지막으로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자격을 갖추는 작은 설명으로, 그는 그 지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하느님과 동반자관계로서 완전할 수 있는 인간 성격의 종류를 보여주고, 창조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진심으로 선택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의 활동적인 아들이 됨으로서, 하느님이 창조체의 일생 속에 현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든 우주에게 보여 주기 충분할 만큼 말씀하였다.

무지한 필사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친 군인들과 경솔한 하인들의 희롱과 구타 그리고 학대 앞에서 보여주신 그의 인내심과 큰 자아-소유에 의해 충만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나서, 조롱하며 그의 얼굴을 때리고, “나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 맞춰 보라.”고 소리쳤을 때에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빌라도가, 예수가 채찍질을 당한 후, 군중 앞에 그를 내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가 알았던 것보다 더욱 참되게 말했다.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로마인 총독은, 바로 그 순간에 우주가 숨죽이며 멈춰섰고, 그 우주로부터 사랑받는 주권자가 자신의 어둠에 빠지고 타락한 필사자 주체들의 비웃음과 구타를 받는 굴욕의 주체가 되어있는 이 독특한 장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할 때, 온 네바돈에는 “하느님과 사람을 바라보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한 우주에 두루, 말이 없었던 수백만이 그 날 이후로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하였고, 한편 하보나의 하느님, 우주들의 우주의 최극 통치자는 나사렛 사람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우주의 필사 창조체들의 이상(理想)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비길 데 없는 그의 일생 속에서 그는 사람에게 하느

not refrain from broadcasting to the universe the depiction of the scene of “Pilate on trial before Jesus.”

186:2.7 (1999.7) When before Caiaphas, and when all the perjured testimony had broken down, Jesus did not hesitate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chief priest, thereby providing in his own testimony that which they desired as a basis for convicting him of blasphemy.

186:2.8 (1999.8) The Master never displayed the least interest in Pilate's well-meant but halfhearted efforts to effect his release. He really pitied Pilate and sincerely endeavored to enlighten his darkened mind. He was wholly passive to all the Roman governor's appeals to the Jews to withdraw their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Throughout the whole sorrowful ordeal he bore himself with simple dignity and unostentatious majesty. He would not so much as cast reflections of insincerity upon his would-be murderers when they asked if he were “king of the Jews.” With but little qualifying explanation he accepted the designation, knowing that, while they had chosen to reject him, he would be the last to afford them real national leadership, even in a spiritual sense.

186:2.9 (2000.1) Jesus said little during these trials, but he said enough to show all mortals the kind of human character man can perfect in partnership with God and to reveal to all the universe the manner in which God can become manifest in the life of the creature when such a creature truly choose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thus becoming an active son of the living God.

186:2.10 (2000.2) His love for ignorant mortals is fully disclosed by his patience and great self-possession in the face of the jeers, blows, and buffetings of the coarse soldiers and the unthinking servants. He was not even angry when they blindfolded him and, derisively striking him in the face, exclaimed: “Prophecy to us who it was that struck you.”

186:2.11 (2000.3) Pilate spoke more truly than he knew when, after Jesus had been scourged, he presented him before the multitude, exclaiming, “Behold the man!” Indeed, the fear-ridden Roman governor little dreamed that at just that moment the universe stood at attention, gazing upon this unique scene of its beloved Sovereign thus subjected in humiliation to the taunts and blows of his darkened and degraded mortal subjects. And as Pilate spoke, there echoed throughout all Nebadon, “Behold God and man!” Throughout a universe, untold millions have ever since that day continued to behold that man, while the God of Havona, the supreme rul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ccepts the man of Nazareth as the satisfaction of the ideal of the mortal creatures of this local universe of time and space. In his

님을 계시하는 것에서 실패한 적이 결코 없었다. 이제, 그의 필사자 생애의 이들 최종적 에피소드들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어진 죽음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대한 새롭고도 감동적인 계시를 이루었다.

제 3 장. 믿음직한 다윗 세베대

빌라도 앞에서 심문의 결과에 따라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직후에, 주(主)를 따르던 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성전 경비병들이 겟세마네로 신속히 파견되었다. 그러나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이 도착되기 훨씬 전에 이미 흩어졌다. 사도들은 지정된 은신처로 숨었다; 그리스인들은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집으로 숨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신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적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기도와 경배를 위하여 주(主)가 종종 물리나 게셋던 산골짜기로 대여섯 개의 막사를 일찍감치 올였다. 그는 이곳에 숨어있으면서 메신저 봉사를 관리하는 본부 또는 조화-협동 장소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성전 경비병이 도착하였을 때 다윗은 가까스로 야영지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야영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으로 돌아갔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지리멸렬하여,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없어졌다고 안심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회의를 폐하고 각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아갔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직후에, 한 메신저가 다윗에게 알리기 위하여 급히 겟세마네로 떠났으며, 5분 후에는 전령들이 벳세다, 펠라, 필라델피아, 시돈, 세켄, 헤브론, 다마스쿠스, 알렉산드리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메신저들은 예수가 유대인 통치자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서 로마인들에 의해 곧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마침내 주(主)가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비극적인 이 날 하루 종일, 다윗은 사도들과 그리스인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거의 30분마다 메신저들을 보냈다. 예수가 매장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메신저들이 떠나자, 다윗은 가까운 지역에 보내는 무리단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산시키면서, 자기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며칠 동안 숨어 있으려고 하는 니고데모의 집으로 일요일 아침에 모두 은밀하게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matchless life he never failed to reveal God to man. Now, in these final episodes of his mortal career and in his subsequent death, he made a new and touching revelation of man to God.

3. THE DEPENDABLE DAVID ZEBEDEE

186:3.1 (2000.4) Shortly after Jesus was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at the conclusion of the hearing before Pilate, a detachment of the temple guards hastened out to Gethsemane to disperse or arrest the followers of the Master. But long before their arrival these followers had scattered. The apostles had retired to designated hiding places; the Greeks had separated and gone to various homes in Jerusalem; the other disciples had likewise disappeared. David Zebedee believed that Jesus' enemies would return; so he early removed some five or six tents up the ravine near where the Master so often retired to pray and worship. Here he proposed to hide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a center, or co-ordinating station, for his messenger service. David had hardly left the camp when the temple guards arrived. Finding no one there, they contented themselves with burning the camp and then hastened back to the temple. On hearing their report, the Sanhedrin was satisfied that the followers of Jesus were so thoroughly frightened and subdued that there would be no danger of an uprising or any attempt to rescue Jesus from the hands of his executioners. They were at last able to breathe easily, and so they adjourned, every man going his way to prepare for the Passover.

186:3.2 (2000.5) As soon as Jesus was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by Pilate for crucifixion, a messenger hastened away to Gethsemane to inform David, and within five minutes runners were on their way to Bethsaida, Pella, Philadelphia, Sidon, Shechem, Hebron, Damascus, and Alexandria. And these messengers carried the news that Jesus was about to be crucified by the Romans at the insistent behest of the rulers of the Jews.

186:3.3 (2001.1) Throughout this tragic day, until the message finally went forth that the Master had been laid in the tomb, David sent messengers about every half hour with reports to the apostles, the Greeks, and Jesus' earthly family, assembled at the home of Lazarus in Bethany. When the messengers departed with the word that Jesus had been buried, David dismissed his corps of local runners for the Passover celebration and for the coming Sabbath of rest, instructing them to report to him quietly on Sunday morning at the home of Nicodemus, where he proposed to go in hiding for a few days with Andrew and Simon Peter.

독특한 성격을 소유한 다윗 세베대는 예수 수제자들 중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주(主)의 단언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문제로 바라보고 싶어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언젠가 이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경우에 소식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요일 이른 아침에 니고데모의 집으로 모이도록 자기 메신저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이다. 다윗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가 그토록 속히 무덤에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자기 메신저 군대를 일요일 아침 일찍 동원시킨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금요일 오전에 멀리 있는 도시들과 신자들 무리에게 파견하였던 전령들에게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 날 밤에는 유월절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계속 숨어 있었다.

제 4 장. 십자가형을 위한 준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의 아우성에 저항하는 것이 두려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그러한 죄의식에서 빠져 나갈 공리를 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은 후에, 그는 주(主)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였으며, 그를 즉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언질을 지휘관에게 주었다. 예수를 맡게 된 군인들은 다시 그를 집행관 관저 안마당으로 끌고 갔으며, 헤롯이 입혀준 예복을 벗기고 그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혔다. 이 군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이제 혼자서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숨었다; 그의 적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요한 세베대도 더 이상 옆에 남아있지 않았다.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8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로 출발한 것은 9시 조금 전이었다. 30분이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초우주의 행정 업무가 실천적으로 정지되었다. 네바돈의 주요 통치자들과 가브리엘이 모두 이곳 유란시아에 모였고, 혹은 아니면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공간보고서에 바짝 쫓고 있었다.

예수와 함께 군인들이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할 때까지, 그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성과 색다른 위엄에 의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의 침묵에 의해서 감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186:3.4 (2001.2) This peculiar-minded David Zebedee was the only one of the leading disciples of Jesus who was inclined to take a literal and plain matter-of-fact view of the Master's assertion that he would die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David had once heard him make this prediction and, being of a literal turn of mind, now proposed to assemble his messengers early Sunday morning at the home of Nicodemus so that they would be on hand to spread the news in case Jesus rose from the dead. David soon discovered that none of Jesus' followers were looking for him to return so soon from the grave; therefore did he say little about his belief and nothing about the mobilization of all his messenger force on early Sunday morning except to the runners who had been dispatched on Friday forenoon to distant cities and believer centers.

186:3.5 (2001.3) And so these followers of Jesus, scattered throughout Jerusalem and its environs, that night partook of the Passover and the following day remained in seclusion.

4. PREPARATION FOR THE CRUCIFIXION

186:4.1 (2001.4) After Pilate ha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multitude, thus seeking to escape the guilt of delivering up an innocent man to be crucified just because he feared to resist the clamor of the rulers of the Jews, he ordered the Master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and gave the word to their captain that he was to be crucified immediately. Upon taking charge of Jesus, the soldiers led him back into the courtyard of the praetorium, and after removing the robe which Herod had put on him, they dressed him in his own garments. These soldiers mocked and derided him, but they did not inflict further physical punishment. Jesus was now alone with these Roman soldiers. His friends were in hiding; his enemies had gone their way; even John Zebedee was no longer by his side.

186:4.2 (2001.5) It was a little after eight o'clock when Pilate turned Jesus over to the soldiers and a little before nine o'clock when they started for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During this period of more than half an hour Jesus never spoke a word. The executive business of a great universe was practically at a standstill. Gabriel and the chief rulers of Nebadon were either assembled here on Urantia, or else they were closely attending upon the space reports of the archangels in an effort to keep advised as to what was happening to the Son of Man on Urantia.

186:4.3 (2001.6) By the time the soldiers were ready to depart with Jesus for Golgotha, they had begun to be impressed by his unusual composure and extraordinary dignity, by his uncomplaining silence.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 장소로 출발하는 일이 늦어지게 된 주요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들을 함께 처형하기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 그 지휘관 때문이었다; 예수를 그 날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유월절 축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같이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로마 지휘관은 생각하였다.

강도들은 준비를 갖춘 후 즉시 그 안마당으로 끌려왔으며, 그곳에서 예수를 쳐다보았고, 한 사람은 처음 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달 전에는 펠라 야영지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었다.

제 5 장.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예수의 죽음과 유대인의 유월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을 희생물로 제공하는 시간 무렵에, 예수가 육신으로서의 그의 일생을 마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쩌다 동시에 발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아들의 죽음이 유대인의 희생 제사 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유대인이기는 하였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로써 온 세상을 위한 사람이었다. 주(主)의 임박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술된 사건들만으로도, 이 때 그의 죽음이 순전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사람이 획책한 사건임을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아버지께서 유란시아에서의 인간의 사건 진행에 간섭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벌여졌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도록 명하지도, 강요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 예수가 조만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버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육신으로의 화신을, 두 강도들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시더라도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한 것이었으며, 하느님이 한 것이 아니었다.

주(主)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체험, 일곱 번째의 마지막 중여를 완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체험에 대한 기법을 이미 완성하였다. 바로 이때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임무는 성취되었다. 그 후에 사신 그의 모든 일생, 그리고 심지어 그가 돌아가신 방법까지도, 이 세계와 다른 세계들에 존재하는 필사 창조체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한 순전히 개인적 사명활동이었다.

필사자가 신앙에 의해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을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즐거운 소식을

186:4.4 (2001.7) Much of the delay in starting off with Jesus for the site of the crucifixion was due to the last-minute decision of the captain to take along two thieves who had been condemned to die; since Jesus was to be crucified that morning, the Roman captain thought these two might just as well die with him as wait for the end of the Passover festivities.

186:4.5 (2002.1) As soon as the thieves could be made ready, they were led into the courtyard, where they gazed upon Jesus, one of them for the first time, but the other had often heard him speak, both in the temple and many months before at the Pella camp.

5. JESUS' DEATH IN RELATION TO THE PASSOVER

186:5.1 (2002.2) There is no direct relation between the death of Jesus and the Jewish Passover. True, the Master did lay down his life in the flesh on this day, the day of the preparation for the Jewish Passover, and at about the time of the sacrificing of the Passover lambs in the temple. But this coincidental occurrence does not in any manner indicate that the death of the Son of Man on earth has any connection with the Jewish sacrificial system. Jesus was a Jew, but as the Son of Man he was a mortal of the realms. The events already narrated and leading up to this hour of the Master's impending crucifixion are sufficient to indicate that his death at about this time was a purely natural and man-managed affair.

186:5.2 (2002.3) It was man and not God who planned and execute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True, the Father refused to interfere with the march of human events on Urantia, but the Father in Paradise did not decree, demand, or require the death of his Son as it was carried out on earth. It is a fact that in some manner, sooner or later, Jesus would have had to divest himself of his mortal body, his incarnation in the flesh, but he could have executed such a task in countless ways without dying on a cross between two thieves. All of this was man's doing, not God's.

186:5.3 (2002.4) At the time of the Master's baptism he had already completed the technique of the required experience on earth and in the flesh which was necessary for the completion of his seventh and last universe bestowal. At this very time Jesus' duty on earth was done. All the life he lived thereafter, and even the manner of his death, was a purely personal ministry on his part for the welfare and uplifting of his mortal creatures on this world and on other worlds.

186:5.4 (2002.5) The gospel of the good news that mortal man may, by faith, become spirit-conscious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의 죽음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 왕국 복음 전체가 주(主)의 죽음에 의해서 굉장히 밝게 빛나게 된 것은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의 일생에 의해서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자녀 관계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교리들을 매우 아름답게 장식하였지만, 하느님과 사람들의 본질적인 관계들은, 하느님의 그의 창조체들에 대한 사랑의 우주적 사실들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타고난 자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세계는 물론 다른 모든 우주들의 우주 전체 속에서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들은 영원 속에서 존재되어 왔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자 아들들의 이들 정기적인 증여는 그 어떤 면에서도 자신들의 지역우주에 반영되어질 무제한적 주권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만 하는 어떤 대가의 일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창조한 지능존재들의 본성과 모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가 사람과 하느님과의 협동 관계의 이 초월적인 공개 이후에 그가 하였던 것만큼, 그가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 이전에도 땅에 있는 필사 사람을 그 만큼 사랑하였다. 네바돈의 하느님이 유란시아에 사람으로 육신화한 이 엄청난 사건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우주적인 아버지의 속성들을 증강시키지는 못하지만, 네바돈의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관리-행정자들과 창조체들을 깨우치시고 풍성하게 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미가엘의 이러한 증여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모든 천상의 지능존재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그리고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천상의 지능존재들에게 사람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하였다.

예수는 죄에 대한 희생물로서 죽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태생적 도덕적 죄의식에 대하여 속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인류는 하느님 앞에 그러한 종족의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은 순전히 개인적 죄와 지식, 아버지의 뜻과 그의 아들의 관리-행정에 대항하는 고의적인 반역의 문제이다.

비록 구원 계획이 증여 계획의 잠정적인 특색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반역은 하느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근본적인 증여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일 예수가 무지한 필사자들의 무자비한 손에 의해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은 아주 그렇게 효력이 있고 틀림없이 확실하였을 것이다. 만일 주(主)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육신 속에서의 자신의 일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나왔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실—하느님과 아들관계의 사실—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며, 너희 개인

that he is a son of God, is not dependent on the death of Jesus. True, indeed, all this gospel of the kingdom has been tremendously illuminated by the Master's death, but even more so by his life.

186:5.5 (2002.6) All that the Son of Man said or did on earth greatly embellished the doctrines of sonship with God and of the brotherhood of men, but these essential relationships of God and men are inherent in the universe facts of God's love for his creatures and the innate mercy of the divine Sons. These touching and divinely beautiful relations between man and his Maker, on this world and on all others throughout the universe of universes, have existed from eternity; and they are not in any sense dependent on these periodic bestowal enactments of the Creator Sons of God, who thus assume the nature and likeness of their created intelligences as a part of the price which they must pay for the final acquirement of unlimited sovereignty over their respective local universes.

186:5.6 (2002.7) The Father in heaven loved mortal man on earth just as much before the life and death of Jesus on Urantia as he did after this transcendent exhibition of the copartnership of man and God. This mighty transaction of the incarnation of the God of Nebadon as a man on Urantia could not augment the attributes of the eternal, infinite, and universal Father, but it did enrich and enlighten all other administrators and creatures of the universe of Nebadon. While the Father in heaven loves us no more because of this bestowal of Michael, all other celestial intelligences do. And this is because Jesus not only made a revelation of God to man, but he also likewise made a new revelation of man to the Gods and to the celestial intelligences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186:5.7 (2003.1) Jesus is not about to die as a sacrifice for sin. He is not going to atone for the inborn moral guilt of the human race. Mankind has no such racial guilt before God. Guilt is purely a matter of personal sin and knowing,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e administration of his Sons.

186:5.8 (2003.2) Sin and rebellion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undamental bestowal plan of the Paradise Sons of God, albeit it does appear to us that the salvage plan is a provisional feature of the bestowal plan.

186:5.9 (2003.3) The salvation of God for the mortals of Urantia would have been just as effective and unerringly certain if Jesus had not been put to death by the cruel hands of ignorant mortals. If the Master had been favorably received by the mortals of earth and had departed from Urantia by the voluntary relinquishment of his life in the flesh, the fact of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the Son — the fact of sonship with God — would have in no wise been affected. You mortals are the sons of

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의 영으로-태어난 신앙이다.

God, and only one thing is required to make such a truth factual in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that is your spirit-born faith.

제 187 편 십자가형

⇨ 186

유랜시아 책

188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7 편 십자가형

섹션

소개

제 1 장. 골고다로 가는 길

제 2 장. 십자가형

제 3 장.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제 4 장. 십자가 위의 도둑

제 5 장.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

제 6 장. 십자가형 이후

PAPER 187

THE CRUCIFIXION

SECTIONS

Introduction

1. On the Way to Golgotha

2. The Crucifixion

3. Those Who Saw the Crucifixion

4. The Thief on the Cross

5. Last Hour on the Cross

6. After the Crucifixion

소개

두 강도들이 준비된 후에, 군인들은 백부장의 인솔 하에 십자가형이 벌어질 장소로 출발하였다. 12명의 군인들을 책임 맡은 그 백부장은 전 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군인들을 인솔하고 갔던 지도관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히는 각 사람마다 4명의 군인들이 배정되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다. 두 강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하여 끌고 가기 전에 절차대로 채찍질을 받았지만, 예수는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은 받지 않았다; 지도관은 그가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 맞은 것이기는 하였었지만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채찍에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들은 바라바의 연관-동료들이었으며, 빌라도의 유월절 특사(特赦)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가 함께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는 바라바 대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었다.

이제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체험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 하였었다: “아버지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아무도

INTRODUCTION

187:0.1 (2004.1) AFTER the two brigands had been made ready, the soldiers, under the direction of a centurion, started for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The centurion in charge of these twelve soldiers was the same captain who had led forth the Roman soldiers the previous night to arrest Jesus in Gethsemane. It was the Roman custom to assign four soldiers for each person to be crucified. The two brigands were properly scourged before they were taken out to be crucified, but Jesus was given no further physical punishment; the captain undoubtedly thought he had already been sufficiently scourged, even before his condemnation.

187:0.2 (2004.2) The two thieves crucified with Jesus were associates of Barabbas and would later have been put to death with their leader if he had not been released as the Passover pardon of Pilate. Jesus was thus crucified in the place of Barabbas.

187:0.3 (2004.3) What Jesus is now about to do, submit to death on the cross, he does of his own free will. In foretelling this experience, he said: “The Father loves and sustains me because I am willing to lay down my life. But I will take it up again. No one takes my life away from me — I lay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며—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취할 권한도 있다. 나는 그러한 계명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였다.”

군인들이 집정관 관저로부터 골고다를 향한 길로 예수를 끌고 간 것은 이 날 아침 9시 조금 전이었다.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200이 넘는 이 무리들 대부분은 그의 적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지켜봄으로써 짜릿한 충격을 즐기려고 하는 호기심 많은 한심한 자들이었다. 유대인 영도자들 중에서는 단지 몇 명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예수를 보려고 갔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과,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알면서, 성전에서 회의를 하기에 바빴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제 1 장. 골고다로 가는 길

집정관 관저의 안마당을 떠나기에 앞서, 군인들은 가로 들보를 예수의 어깨에 메웠다. 사형수에게 가로 들보를 지게 하여 십자가 형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다. 그러한 사형수는 십자가 전체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짧은 나무를 지게 하였다. 세 개의 십자가를 위한 보다 길고 똑바로 세우는 나무들은 이미 골고다로 운반되어 있었으며, 군인들과 죄수들이 도착될 무렵에는 벌써 땅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 지휘관은 관습에 따라서 행렬을 인도하였으며, 죄인의 이름과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죄의 성격을 솟으로 기록한 하얀 색의 작은 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백부장은 두 강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밑에 “강도”라는 한 마디를 쓴 팻말들을 가지고 있었다. 죄수가 가로들보에 못박히고 똑바로 세워진 나무 위의 그의 자리로 끌어 올려지고 난 후에는, 죄수의 머리 바로 위 십자가 꼭대기에 이 팻말을 못으로 박아 놓아, 그 사형수가 무슨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지를 모든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붙이기 위하여 백부장이 가져온 패 위에는 빌라도가 직접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하였으며,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빌라도가 이 패를 쓸 때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던 유대인 당국자들 몇 사람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한 죄명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 기소 내용의 일부본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내용이 적어도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였다.”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t down of myself.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I have authority to take it up. I have received such a commandment from my Father.”

187:0.4 (2004.4) It was just before nine o'clock this morning when the soldiers led Jesus from the praetorium on the way to Golgotha. They were followed by many who secretly sympathized with Jesus, but most of this group of two hundred or more were either his enemies or curious idlers who merely desired to enjoy the shock of witnessing the crucifixions. Only a few of the Jewish leaders went out to see Jesus die on the cross. Knowing that he had been turned over to the Roman soldiers by Pilate, and that he was condemned to die, they busied themselves with their meeting in the temple, whereat they discussed what should be done with his followers.

1. ON THE WAY TO GOLGOTHA

187:1.1 (2004.5) Before leaving the courtyard of the praetorium, the soldiers placed the crossbeam on Jesus' shoulders. It was the custom to compel the condemned man to carry the crossbeam to the site of the crucifixion. Such a condemned man did not carry the whole cross, only this shorter timber. The longer and upright pieces of timber for the three crosses had already been transported to Golgotha and, by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soldiers and their prisoners, had been firmly implanted in the ground.

187:1.2 (2004.6) According to custom the captain led the procession, carrying small white boards on which had been written with charcoal the names of the criminals and the nature of the crimes for which they had been condemned. For the two thieves the centurion had notices which gave their names, underneath which was written the one word, “Brigand.” It was the custom, after the victim had been nailed to the crossbeam and hoisted to his place on the upright timber, to nail this notice to the top of the cross, just above the head of the criminal, that all witnesses might know for what crime the condemned man was being crucified. The legend which the centurion carried to put on the cross of Jesus had been written by Pilate himself in Latin, Greek, and Aramaic, and it read: “Jesus of Nazareth — the King of the Jews.”

187:1.3 (2005.1) Some of the Jewish authorities who were yet present when Pilate wrote this legend made vigorous protest against calling Jesus the “king of the Jews.” But Pilate reminded them that such an accusation was part of the charge which led to his condemnation. When the Jews saw they could not prevail upon Pilate to change his mind, they pleaded that at least it be modified to read, “He said, ‘I am the king of the Jews.’” But Pilate was adamant; he would not alter the writing. To all

빌라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간청하는 그들에게 오직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대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먼 길을 통해 골고다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그들은 이 날 그 성의 북쪽으로 나가는 다마스쿠스 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로 갔고, 그들은 이 길을 따라서 곧 골고다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식적인 십자가 형장이었다. 골고다를 지나가면 부자들의 저택들이 있었으며, 길 반대편에는 많은 부유층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처벌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웠다. 헤롯마지도, 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자주 쓰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결코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 오직 노예들과 피지배인들만이 이러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예수 십자가형의 꼭 40년 후에, 골고다 전역이 수천, 수 만개의 십자가로 뒤덮였으며, 매일같이, 그 위에서 유대 종족의 꽃이 사라졌다. 정말로, 이날 뿌려진 씨앗의 무서운 수확이 되었다.

죽음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들을 지나가자, 좋은 위로와 연민의 예수 말씀을 들었고, 사랑의 사명활동을 하였던 그의 일생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의 많은 유대 여인들이, 그러한 야비한 죽음을 막기 위해 끌려가시는 그를 보자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이 여인들 대부분은 비통하였으며 애도하였다. 그들 중의 일부는 용감하게 그의 옆에서 따라가려고 하였지만, 주(主)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내 일은 거의 끝났지만—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간다.—예루살렘에 극심한 고난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다. 보라,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자와 자녀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말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날들에는 너희가 너의 재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언덕 위의 돌이 너희에게 굴러 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에 대해 동정심을 현시한 것은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자는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사형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은 허용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자신의 친구들이 숨어있었던 어두운 시간에 동정심을 현시활동하는 것에 예수가 고맙게 여기기는 했어도, 그는 마음고운 이 여인들이 자신에게 감히 연민을 나타냄으로써 당국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다.

further supplication he only repli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187:1.4 (2005.2) Ordinarily, it was the custom to journey to Golgotha by the longest road in order that a large number of persons might view the condemned criminal, but on this day they went by the most direct route to the Damascus gate, which led out of the city to the north, and following this road, they soon arrived at Golgotha, the official crucifixion site of Jerusalem. Beyond Golgotha were the villas of the wealthy,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were the tombs of many well-to-do Jews.

187:1.5 (2005.3) Crucifixion was not a Jewish mode of punishment. Both the Greeks and the Romans learned this method of execution from the Phoenicians. Even Herod, with all his cruelty, did not resort to crucifixion. The Romans never crucified a Roman citizen; only slaves and subject peoples were subjected to this dishonorable mode of death. During the siege of Jerusalem, just forty years after the crucifixion of Jesus, all of Golgotha was covered by thousands upon thousands of crosses upon which, from day to day, there perished the flower of the Jewish race. A terrible harvest, indeed, of the seed-sowing of this day.

187:1.6 (2005.4) As the death procession passed along the narrow streets of Jerusalem, many of the tenderhearted Jewish women who had heard Jesus' words of good cheer and compassion, and who knew of his life of loving ministry, could not refrain from weeping when they saw him being led forth to such an ignoble death. As he passed by, many of these women bewailed and lamented. And when some of them even dared to follow along by his side, the Master turned his head toward them and said: “Daughters of Jerusalem, weep not for me, but rather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My work is about done — soon I go to my Father — but the times of terrible trouble for Jerusalem are just beginning. Behold, the days are coming in which you sha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and those whose breasts have never suckled their young. In those days will you pray the rocks of the hills to fall on you in order that you may be delivered from the terrors of your troubles.”

187:1.7 (2005.5) These women of Jerusalem were indeed courageous to manifest sympathy for Jesus, for it was strictly against the law to show friendly feelings for one who was being led forth to crucifixion. It was permitted the rabble to jeer, mock, and ridicule the condemned, but it was not allowed that any sympathy should be expressed. Though Jesus appreciated the manifestation of sympathy in this dark hour when his friends were in hiding, he did not want these kindhearted women to incur the displeasure of the authorities

이와 같은 때에도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에 임할 극도로 비극적인 그 때를 생각하였다.

주(主)가 십자가 형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실 때, 그는 매우 지쳐있었다;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엘리야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후로 음식과 물을 조금도 드시지 못하였다;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나운 채찍질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심문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그의 극단적인 정신적 고뇌와 날카로운 영적 긴장감 그리고 극심한 인간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과한 후 얼마 안되어서, 예수는 가로 들보를 이겨내지 못하여 비틀거리었고, 체력이 시시각각으로 떨어지셨으며,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군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찼으나,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것을 본 지휘관은 예수가 이미 지탱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군인들에게 그만 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키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수의 어깨 위에 있는 가로 들보를 내려서 끌고다가지 남아 있는 길을 강제로 지고 가도록 하였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키레네로부터 먼 길을 여행하였다. 로마 지휘관이 예수의 가로 들보를 지고 가도록 명령하였을 때, 그는 성(城)안에 있는 성전 예배봉사에 참가하러가던 도중에, 다른 키레네인들과 함께 바로 성 밖에서 쉬고 있었다. 시몬은 주(主)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시간 동안 내내 떠나지 않고 많은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적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부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는 왕국 복음에 대한 훌륭한 신자가 되었으며, 고향에 돌아간 후에, 그는 그의 가족을 하늘왕국으로 인도하였다. 그의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푸스는 아프리카에서 그 새 복음을 가르치는 매우 효과적인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가, 그의 짐을 그가 지었으며, 그리고 부상당했던 자기 아들과 한 때 친구로 지냈던 그 유대인 개인 교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죽음의 행렬이 골고다에 도착한 것은 9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로마 군인들은 두 강도들과 사람의 아들을 그들 각각의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직접 착수하였다.

by daring to show compassion in his behalf. Even at such a time as this Jesus thought little about himself, only of the terrible days of tragedy ahead for Jerusalem and the whole Jewish nation.

187:1.8 (2006.1) As the Master trudged along on the way to the crucifixion, he was very weary; he was nearly exhausted. He had had neither food nor water since the Last Supper at the home of Elijah Mark; neither had he been permitted to enjoy one moment of sleep. In addition, there had been one hearing right after another up to the hour of his condemnation, not to mention the abusive scourgings with their accompanying physical suffering and loss of blood. Superimposed upon all this was his extreme mental anguish, his acute spiritual tension, and a terrible feeling of human loneliness.

187:1.9 (2006.2) Shortly after passing through the gate on the way out of the city, as Jesus staggered on bearing the crossbeam, his physical strength momentarily gave way, and he fell beneath the weight of his heavy burden. The soldiers shouted at him and kicked him, but he could not arise. When the captain saw this, knowing what Jesus had already endured, he commanded the soldiers to desist. Then he ordered a passerby, one Simon from Cyrene, to take the crossbeam from Jesus' shoulders and compelled him to carry it the rest of the way to Golgotha.

187:1.10 (2006.3) This man Simon had come all the way from Cyrene, in northern Africa, to attend the Passover. He was stopping with other Cyrenians just outside the city walls and was on his way to the temple services in the city when the Roman captain commanded him to carry Jesus' crossbeam. Simon lingered all through the hours of the Master's death on the cross, talking with many of his friends and with his enemies. After the resurrection and before leaving Jerusalem, he became a valiant believer in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when he returned home, he led his family into the heavenly kingdom. His two sons, Alexander and Rufus, became very effective teachers of the new gospel in Africa. But Simon never knew that Jesus, whose burden he bore, and the Jewish tutor who once befriended his injured son, were the same person.

187:1.11 (2006.4) It was shortly after nine o'clock when this procession of death arrived at Golgotha, and the Roman soldiers set themselves about the task of nailing the two brigands and the Son of Man to their respective crosses.

제 2 장. 십자가형

군인들은 먼저 주(主)의 팔을 가로 들보에 끈으로 묶었으며, 그 후에 그의 손을 나무에 못박았다. 그들은 이 가로 들보를 기둥 위로 끌어올리고,

2. THE CRUCIFIXION

187:2.1 (2006.5) The soldiers first bound the Master's arms with cords to the crossbeam, and then they nailed his hands to the wood. When they had

똑바로 세워진 십자가 나무에 견고히 못을 박은 후에, 그의 발도 나무에 묶고, 두 발을 관통하도록 한 개의 긴 못을 사용하여, 그의 발을 나무에 못박았다. 똑바로 세워진 나무에는 큰 췌기 못이 적당한 높이에 박혀 있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였다. 그 십자가는 높지 않았으므로, 주(主)의 발끝에서 땅까지는 약 3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비웃는 모든 말들을 들으실 수 있었으며, 생각 없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고통과 이 시간들 동안 서서히 죽어 가는 예수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옷을 모두 벗기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대인들은 벗겨진 육체가 대중들 앞에 노출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허리 부분만 감추는 옷을 입혔다. 따라서 예수의 옷이 벗겨진 후, 그가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그는 그런 옷이 입혀졌다.

십자가형은 오래 지속되는 잔인한 형벌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사형수가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형을 상당히 반대하는 정서가 있었으며,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형장에 늘 대리인을 보내는 유대인 부인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목이 마르셨을 때 마취제가 섞인 이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주(主)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의식(意識)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태 속에서도 죽음에 대처하고, 충만한 인간 체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두 강도들은 이미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으며, 그 동안 내내 형 집행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침을 뱉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가로대에 못 박을 때, 그는 오직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이었을 뿐이다. 것처럼 애정 어린 헌신에서의 생각들이, 사심-없이 봉사하는 모든 그의 일생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었다면, 그가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토록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으로 중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평생 동안의 관념, 동기, 갈망은 위기에 처했을 때 흔히 계시된다.

주(主)가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진 후에, 그 지휘관은 그의 머리 위쪽에 명패를 못박았으며, 세 나라 말로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믿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 하였다; 그는 그가 협박을 당했고 창피를 당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 작은 복수의 방법을 취했다. 그는 “예수, 반역자”라고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유

hoisted this crossbeam up on the post, and after they had nailed it securely to the upright timber of the cross, they bound and nailed his feet to the wood, using one long nail to penetrate both feet. The upright timber had a large peg, inserted at the proper height, which served as a sort of saddle for supporting the body weight. The cross was not high, the Master's feet being only about three feet from the ground. He was therefore able to hear all that was said of him in derision and could plainly see the expression on the faces of all those who so thoughtlessly mocked him. And also could those present easily hear all that Jesus said during these hours of lingering torture and slow death.

187:2.2 (2007.1) It was the custom to remove all clothes from those who were to be crucified, but since the Jews greatly objected to the public exposure of the naked human form, the Romans always provided a suitable loin cloth for all persons crucified at Jerusalem. Accordingly, after Jesus' clothes had been removed, he was thus garbed before he was put upon the cross.

187:2.3 (2007.2) Crucifixion was resorted to in order to provide a cruel and lingering punishment, the victim sometimes not dying for several days. There was considerable sentiment against crucifixion in Jerusalem, and there existed a society of Jewish women who always sent a representative to crucifixions for the purpose of offering drugged wine to the victim in order to lessen his suffering. But when Jesus tasted this narcotized wine, as thirsty as he was, he refused to drink it. The Master chose to retain his human consciousness until the very end. He desired to meet death, even in this cruel and inhuman form, and conquer it by voluntary submission to the full human experience.

187:2.4 (2007.3) Before Jesus was put on his cross, the two brigands had already been placed on their crosses, all the while cursing and spitting upon their executioners. Jesus' only words, as they nailed him to the crossbeam, were,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He could not have so mercifully and lovingly interceded for his executioners if such thoughts of affectionate devotion had not been the mainspring of all his life of unselfish service. The ideas, motives, and longings of a lifetime are openly revealed in a crisis.

187:2.5 (2007.4) After the Master was hoisted on the cross, the captain nailed the title up above his head, and it read in three languages, “Jesus of Nazareth — the King of the Jews.” The Jews were infuriated by this believed insult. But Pilate was chafed by their disrespectful manner; he felt he had been intimidated and humiliated, and he took this method of obtaining petty revenge. He could have written “Jesus, a rebel.” But he well

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 지를 잘 알았으므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작정하였다. 사형 당한 이 갈릴리인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것을 그들이 봄으로서 그들의 급소가 찢람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많은 유대인 영도자들은 빌라도가 이러한 기록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여서 자기들을 얼마나 조롱하려고 하는지를 알고서, 서둘러 끌고다오 달려갔지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못하였다. 명패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도 그 기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영도자들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비웃고 조소하도록 힘을 다하여 선동하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롯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 위의 그의 자리로 끌어올려진 직후, 그리고 그 지휘관이 명패를 주(主)의 머리 위에 못박고 있을 바로 그 때, 현장에 도착하였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현장에 모시고 온 후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자기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있지 못하였지만, 열 한 명의 사도들 중에서 십자가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요한과 그의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주(主)의 십자가형에 선임되었던 네 명의 군인들은, 관례대로, 그의 옷들을 서로 나누었다, 한 사람은 신발을, 한 사람은 머리 두건을, 한 사람은 허리띠를,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외투를 가졌다. 이제 네 조각으로 잘라야 될 옷옷, 혹은 무릎 근처까지 닿는 이음매가 없는 제복, 이 남았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을 보자,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의 옷들을 나누고 있는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았으며, 그리고 생각 없는 군중은 그를 조롱했다.

로마 군인들이 주(主)의 옷을 갖는 것은 잘된 일이었다. 그렇지 않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복들을 가졌다면, 유물을 미신적으로 경배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주(主)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일생과 관계되는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납되어지는 높은 영적 이상에 바쳐진 인간 일생에 대한 기억만을 인류에게 남겨두고자 하였다.

제 3 장.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이 금요일 아침 9시 30분경에, 예수가 십자가(十字架)에 매달렸다. 11시 이전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애처로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러한 소름끼치는 시간 내내, 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들은 창조자께서 그 자신이 창조체의 죽음을

knew how these Jerusalem Jews detested the very name of Nazareth, and he was determined thus to humiliate them. He knew that they would also be cut to the very quick by seeing this executed Galilean called “The King of the Jews.”

187:2.6 (2007.5) Many of the Jewish leaders, when they learned how Pilate had sought to deride them by placing this inscription on the cross of Jesus, hastened out to Golgotha, but they dared not attempt to remove it since the Roman soldiers were standing on guard. Not being able to remove the title, these leaders mingled with the crowd and did their utmost to incite derision and ridicule, lest any give serious regard to the inscription.

187:2.7 (2007.6) The Apostle John, with Mary the mother of Jesus, Ruth, and Jude, arrived on the scene just after Jesus had been hoisted to his position on the cross, and just as the captain was nailing the title above the Master's head. John was the only one of the eleven apostles to witness the crucifixion, and even he was not present all of the time since he ran into Jerusalem to bring back his mother and her friends soon after he had brought Jesus' mother to the scene.

187:2.8 (2007.7) As Jesus saw his mother, with John and his brother and sister, he smiled but said nothing. Meanwhile the four soldiers assigned to the Master's crucifixion, as was the custom, had divided his clothes among them, one taking the sandals, one the turban, one the girdle, and the fourth the cloak. This left the tunic, or seamless vestment reaching down to near the knees, to be cut up into four pieces, but when the soldiers saw what an unusual garment it was, they decided to cast lots for it. Jesus looked down on them while they divided his garments, and the thoughtless crowd jeered at him.

187:2.9 (2008.1) It was well that the Roman soldiers took possession of the Master's clothing. Otherwise, if his followers had gained possession of these garments, they would have been tempted to resort to superstitious relic worship. The Master desired that his followers should have nothing material to associate with his life on earth. He wanted to leave mankind only the memory of a human life dedicated to the high spiritual ideal of being consecrated to doing the Father's will.

3. THOSE WHO SAW THE CRUCIFIXION

187:3.1 (2008.2) At about half past nine o'clock this Friday morning, Jesus was hung upon the cross. Before eleven o'clock, upward of one thousand persons had assembled to witness this spectacle of the crucifixion of the Son of Man. Throughout these dreadful hours the unseen hosts of a

으로 죽어가고 있는,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 죄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현 상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괴로운 시련동안 때때로 십자가 옆에 마리아, 룿, 유다, 요한, 살로메(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 수의 이모이고 클레오파스의 아내인 마리아를 포 함한 한 무리의 열렬한 여자 신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전에 세포리에 있었던 레베카가 서 있 었다. 이 사람들과 예수의 다른 친구들은 그의 위 대한 인내심과 끈기함을 보면서 그들의 평정을 유 지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극심한 고난을 지켜보았 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그를 폭언을 퍼부으며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삼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너다,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만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유대인 통치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 은 구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말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더 욱 그를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 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까지 주장하였는데—이제 그를 보아라.—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 들까지도 역시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그를 꾸짖었 다.

그들의 조롱에 예수가 대꾸하려고 하지 않으 시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한 준비일의 정오 시간 이 가까워졌으므로, 11시 30분경이 되자 희롱하고 야유하던 군중들 대부분이 돌아갔으며; 50명 미만 의 사람들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군인들은 오랫동안 죽는 과정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값싼 신 포도 주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를 비웃듯이 건배하면서 “만세 그리고 유대인의 왕의 행운을 위하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비웃음과 조롱 에 대한 주(主)의 관대함에 놀랐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신 예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였다.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병에서 약간의 포도 주를 따라서 스펀지로 된 해면에 흠뻑 적신 후에, 창끝에 달아 올려서 예수가 바짝 마른 입술을 적 실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 고 사시기로 작정하였었으며, 마찬가지로 보통 사 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죽으려고 하였다.

universe stood in silence while they gazed upon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of the Creator as he was dying the death of the creature, even the most ignoble death of a condemned criminal.

187:3.2 (2008.3) Standing near the cross at one time or another during the crucifixion were Mary, Ruth, Jude, John, Salome (John's mother), and a group of earnest women believers including Mary the wife of Clopas and sister of Jesus' mother, Mary Magdalene, and Rebecca, onetime of Sepphoris. These and other friends of Jesus held their peace while they witnessed his great patience and fortitude and gazed upon his intense sufferings.

187:3.3 (2008.4) Many who passed by wagged their heads and, railing at him, said: "You who would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again in three days, save yourself. If you are the Son of God, why do you not come down from your cross?" In like manner some of the rulers of the Jews mocked him, saying, "He saved others, but himself he cannot save." Others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you." And later on they mocked him the more, saying: "He trusted in God to deliver him. He even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 look at him now — crucified between two thieves." Even the two thieves also railed at him and cast reproach upon him.

187:3.4 (2008.5) Inasmuch as Jesus would make no reply to their taunts, and since it was nearing noontime of this special preparation day, by half past eleven o'clock most of the jesting and jeering crowd had gone its way; less than fifty persons remained on the scene. The soldiers now prepared to eat lunch and drink their cheap, sour wine as they settled down for the long deathwatch. As they partook of their wine, they derisively offered a toast to Jesus, saying, "Hail and good fortune! to the king of the Jews." And they were astonished at the Master's tolerant regard of their ridicule and mocking.

187:3.5 (2008.6) When Jesus saw them eat and drink, he looked down upon them and said, "I thirst." When the captain of the guard heard Jesus say, "I thirst," he took some of the wine from his bottle and, putting the saturated sponge stopper upon the end of a javelin, raised it to Jesus so that he could moisten his parched lips.

187:3.6 (2008.7) Jesus had purposed to live without resort to his supernatural power, and he likewise elected to die as an ordinary mortal upon the cross. He had lived as a man, and he would die as a man — doing the Father's will.

제 4 장. 십자가 위의 도둑

4. THE THIEF ON THE CROSS

강도들 중 한 명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했다. “만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자신과 우리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비난하자, 여러 번 주(主)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하느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고난을 받지만 이 사람은 부당하게 당하고 있음을 너는 모르겠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 혼에 대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예수가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을 본 그 죄수는 용기를 내어, 꺼질 듯한 신앙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면서, “주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말하겠는데, 네가 장차 파라다이스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主)는 육신이 죽어 가는 고통이 한창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강도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였다. 이 강도가 구원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해방을 찾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 번 강요를 받은 바 있었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주(主)의 가르침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태도를 보았을 때, 이 강도는 사람의 아들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신념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 강도가 예수로 인하여 전향하고 왕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동안,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지 않았으며, 자기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을 십자가형의 현장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도시로 들어갔었다. 누가는 개종한 그 로마 경비원 지휘관으로부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65년 이 지난 후에 그가 사건을 기억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다른 기록들은, 당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예수를 믿었고, 그로서 지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충만한 동료관계가 되었던 로마 백부장의 설명에 근거를 두었다.

참회한 강도인 이 젊은이는, 강도 행위야말로 정치적인 압제와 사회적인 불공정에 대항하여 애국적으로 항거하는 효력적인 수단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과 그릇된 행동의 일생으로 인도 되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모험심에 대한 충동이 더하여져, 많은 선의의 젊은이들을 무모한 강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 젊은이도 바라바를 하나의 영웅으로 추앙하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았다. 그의 열 십자가 위에서 그는 실제로 위대한 사람, 참된 영웅을 보았다. 그의 열성에 불을 질렀고 도덕적 자아-존중에 대한 그의 최고의 관념을 고무하였으며 용기와 성품과 용감성에 대한 그의 모든 이상들을 되살렸던 영웅이 여기 있었다. 예수를

187:4.1 (2008.8) One of the brigands railed at Jesus, saying, “If you are the Son of God, why do you not save yourself and us?” But when he had reproached Jesus, the other thief, who had many times heard the Master teach, said: “Do you have no fear even of God? Do you not see that we are suffering justly for our deeds, but that this man suffers unjustly? Better that we should seek forgiveness for our sins and salvation for our souls.” When Jesus heard the thief say this, he turned his face toward him and smiled approvingly. When the malefactor saw the face of Jesus turned toward him, he mustered up his courage, fanned the flickering flame of his faith, and said,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And then Jesus said, “Verily, veri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sometime be with me in Paradise.”

187:4.2 (2009.1) The Master had time amidst the pangs of mortal death to listen to the faith confession of the believing brigand. When this thief reached out for salvation, he found deliverance. Many times before this he had been constrained to believe in Jesus, but only in these last hours of consciousness did he turn with a whole heart toward the Master's teaching. When he saw the manner in which Jesus faced death upon the cross, this thief could no longer resist the conviction that this Son of Man was indeed the Son of God.

187:4.3 (2009.2) During this episode of the conversion and reception of the thief into the kingdom by Jesus, the Apostle John was absent, having gone into the city to bring his mother and her friends to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Luke subsequently heard this story from the converted Roman captain of the guard.

187:4.4 (2009.3) The Apostle John told about the crucifixion as he remembered the event two thirds of a century after its occurrence. The other records were based upon the recital of the Roman centurion on duty who, because of what he saw and heard, subsequently believed in Jesus and entered into the full fellowship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187:4.5 (2009.4) This young man, the penitent brigand, had been led into a life of violence and wrongdoing by those who extolled such a career of robbery as an effective patriotic protest against political oppression and social injustice. And this sort of teaching, plus the urge for adventure, led many otherwise well-meaning youths to enlist in these daring expeditions of robbery. This young man had looked upon Barabbas as a hero. Now he saw that he had been mistaken. Here on the cross beside him he saw a really great man, a true hero. Here was a hero who fired his zeal and inspired his highest ideas of moral self-respect and quickened all his ideals of courage, manhood, and bravery. In

바라보는 동안, 그의 가슴속에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참된 위대성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이 솟아났다.

그리고 만약에 조롱하던 군중들 중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혼속에 신앙의 탄생을 체험하고 예수의 자비에 호소하였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강도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배려를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을 것이다.

회개한 강도가 그들이 언젠가 파라다이스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는 주(主)의 약속을 들은 직후에,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거의 12명이나 되는 여자 신자들의 무리를 데리고 도시로부터 돌아왔다. 요한은, 그녀를 부축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아들 유다는 다른 편에서 있었다. 때는 정오였고 예수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아들이, 네 어머니를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둘 모두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너희가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요한과 유다는 마리아를 골고다에서 모시고 내려갔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던 곳으로 안내한 후에 서둘러서 십자가형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마리아는 벧세다로 돌아갔으며, 그녀는 그곳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그녀의 남은 생애를 살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돌아가신 후 채 1년을 살지 못하였다.

마리아가 떠난 후에, 다른 여인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절명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었으며, 주(主)의 육신이 장례를 위하여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제 5 장.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계절적으로 조금 이른 때이기는 하였지만, 12시가 조금 지나자 공기 속의 고운 모래로 인하여 하늘이 어두워졌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의 모래 폭풍들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1시 이전에 하늘은 무척 어두워졌으며 해는 가리어졌다, 그리고 남아있던 군중들도 서둘러 도시로 돌아갔다. 이 시간 조금 후에 주(主)가 숨을 거두셨을 때, 단지 13명 의 로마 군인들과 15명 정도의 신자들 대략 30명 미만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이 신자들은 주(主)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곳에 도착한 예수의 형제인 유다와 요한 세베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들이었다.

1시 조금 지나서, 강한 모래 폭풍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예수는 점차 인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혼계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씀은 이미 하였다. 그의 마지막 소원—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관한—은 이미 표명하였다. 죽음이 임박하는 이 시간 동안

beholding Jesus, there sprang up in his heart an overwhelming sense of love, loyalty, and genuine greatness.

187:4.6 (2009.5) And if any other person among the jeering crowd had experienced the birth of faith within his soul and had appealed to the mercy of Jesus, he would have been received with the same loving consideration that was displayed toward the believing brigand.

187:4.7 (2009.6) Just after the repentant thief heard the Master's promise that they should sometime meet in Paradise, John returned from the city, bringing with him his mother and a company of almost a dozen women believers. John took up his position near Mary the mother of Jesus, supporting her. Her son Jude stood on the other side. As Jesus looked down upon this scene, it was noontide, and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your son!” And speaking to John, he said, “My son, behold your mother!” And then he addressed them both, saying, “I desire that you depart from this place.” And so John and Jude led Mary away from Golgotha. John took the mother of Jesus to the place where he tarried in Jerusalem and then hastened back to the scene of the crucifixion. After the Passover Mary returned to Bethsaida, where she lived at John's home for the rest of her natural life. Mary did not live quite one year after the death of Jesus.

187:4.8 (2010.1) After Mary left, the other women withdrew for a short distance and remained in attendance upon Jesus until he expired on the cross, and they were yet standing by when the body of the Master was taken down for burial.

5. LAST HOUR ON THE CROSS

187:5.1 (2010.2) Although it was early in the season for such a phenomenon, shortly after twelve o'clock the sky darkened by reason of the fine sand in the air. The people of Jerusalem knew that this meant the coming of one of those hot-wind sandstorms from the Arabian desert. Before one o'clock the sky was so dark the sun was hid, and the remainder of the crowd hastened back to the city. When the Master gave up his life shortly after this hour, less than thirty people were present, only the thirteen Roman soldiers and a group of about fifteen believers. These believers were all women except two, Jude, Jesus' brother, and John Zebedee, who returned to the scene just before the Master expired.

187:5.2 (2010.3) Shortly after one o'clock, amidst the increasing darkness of the fierce sandstorm, Jesus began to fail in human consciousness. His last words of mercy, forgiveness, and admonition had been spoken. His last wish — concerning the care of his mother — had been expressed. During

예수의 인간 마음은 히브리 성서 구절들,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 구절들을 반복하여 떠올리었다. 예수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마음속에 되풀이하였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의식은 마음속으로 이제 시편 20편, 21편 그리고 22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의 구절의 반복에 관심이 있었다. 입술이 가끔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가슴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절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로 하기에는 그는 너무 쇠약했다. 단지 몇 번만, 서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손이 나의 모든 적들을 찾아 낼 것 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발언을 들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에 대하여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일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시지 않았다; 다만 사라져 가는 의식 속에서 많은 성서 구절들을 읊조릴 뿐이었고, 그것들 중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옆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하게 말하여진 세 구절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필사자 예수가 친구들에게 한 마지막 요청은 1시 반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고 그가 말하고, 그리고 같은 경비 지휘관이 당시에 흔히 식초라고 불린 신 포도주에 적신 동일(同一)한 해면으로 그의 입술을 다시 적서준 때였다.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군인들과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 여전히 옆에서 있었다. 군인들은 날카로운 모래를 피하려고 십자가 곁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붕처럼 되어 있는 바위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주(主)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세베대, 주(主)의 형제 유다와 그의 자매 롯,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때 세포리에 있었던 레베카가 있었다.

예수가 큰 음성으로 “이제 완결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 안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라고 외친 때는 3시 직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생명의 몸부림을 그만두셨다. 예수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진실로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는 왕답게—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엄하게 돌아가셨다. 그는 자신이 왕임을 거침없이 인정하였고 그리고 비극의 날 내내 상황에서의 주(主)로 계셨다. 그는 그가 선택한 사도들의 안전을

this hour of approaching death the human mind of Jesus resorted to the repetition of many passages in the Hebrew scriptures, particularly the Psalms. The last conscious thought of the human Jesus was concerned with the repetition in his mind of a portion of the Book of Psalms now known as the twentieth, twenty-first, and twenty-second Psalms. While his lips would often move, he was too weak to utter the words as these passages, which he so well knew by heart, would pass through his mind. Only a few times did those standing by catch some utterance, such as, “I know the Lord will save his anointed,” “Your hand shall find out all my enemies,” and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Jesus did not for one moment entertain the slightest doubt that he had lived in accordance with the Father’s will; and he never doubted that he was now laying down his life in the flesh in accordance with his Father’s will. He did not feel that the Father had forsaken him; he was merely reciting in his vanishing consciousness many Scriptures, among them this twenty-second Psalm, which begins with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And this happened to be one of the three passages which were spoken with sufficient clearness to be heard by those standing by.

187:5.3 (2010.4) The last request which the mortal Jesus made of his fellows was about half past one o’clock when, a second time, he said, “I thirst,” and the same captain of the guard again moistened his lips with the same sponge wet in the sour wine, in those days commonly called vinegar.

187:5.4 (2010.5) The sandstorm grew in intensity and the heavens increasingly darkened. Still the soldiers and the small group of believers stood by. The soldiers crouched near the cross, huddled togeth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cutting sand. The mother of John and others watched from a distance where they were somewhat sheltered by an overhanging rock. When the Master finally breathed his last, there were present at the foot of his cross John Zebedee, his brother Jude, his sister Ruth, Mary Magdalene, and Rebecca, onetime of Sephoris.

187:5.5 (2011.1) It was just before three o’clock when Jesus, with a loud voice, cried out, “It i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life struggle. When the Roman centurion saw how Jesus died, he smote his breast and said: “This was indeed a righteous man; truly he must have been a Son of God.” And from that hour he began to believe in Jesus.

187:5.6 (2011.2) Jesus died royally — as he had lived. He freely admitted his kingship and remained master of the situation throughout the tragic day. He went willingly to his ignominious death, after he

도모한 후에, 기꺼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폭력을 현명하게 제지하였고 요한에게는 그의 필사 실존의 끝까지 곁에 있도록 하였다. 그는 살의에 찬 산헤드린에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계시하였으며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주권 권한의 근원을 상기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가로 들보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필사자로 획득한 자신의 영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위탁함으로써 자신의 사랑 넘치는 증여를 완결하셨다. 그러한 일생 이후에—그리고 그러한 죽음에 즈음하여— 주(主)는 정말로 “이제 완결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체들을 골고다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보내어, 그리하여 그들을 그들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죄수들을 묻는 구덩이로 해가 지기 전에 던져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이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와 두 강도를 다리를 꺾고 그리고 처치하도록 지체 없이 세 군인을 보냈다.

이 군인들이 골고다에 도착하여, 두 강도에게는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아무튼,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들 중 하나가 그의 창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심지어는 이틀 또는 삼일 동안 산 채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예수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 고통과 극심한 영적 비통은 5시간 반이 약간 안 되는 동안에 육신으로서 그의 필사자 생명을 끝내게 했다,

제 6 장. 십자가형 이후

모래 폭풍의 어둠 속에서, 3시 반경에, 다윗 세베대는 주(主)의 죽음을 알리는 마지막 메신저를 보냈다. 그는 그의 전령들 중 마지막을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머물고 있으리라고 생각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보냈다.

주(主)가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여인들을, 유다의 책임아래, 안식일 동안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보냈다. 요한 자신은 이때 로마 백부장과 친해져서,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는 명령을 받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골고다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광대한 한 우주의 비극(悲劇)과 슬픔의 날이 끝났다. 그 우주의 수많은 지능존재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인간으로 육신화한 모습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소스라칠 광경에서 몸

had provided for the safety of his chosen apostles. He wisely restrained Peter's trouble-making violence and provided that John might be near him right up to the end of his mortal existence. He revealed his true nature to the murderous Sanhedrin and reminded Pilate of the source of his sovereign authority as a Son of God. He started out to Golgotha bearing his own crossbeam and finished up his loving bestowal by handing over his spirit of mortal acquirement to the Paradise Father. After such a life — and at such a death — the Master could truly say, “It is finished.”

187:5.7 (2011.3) Because this was the preparation day for both the Passover and the Sabbath, the Jews did not want these bodies to be exposed on Golgotha. Therefore they went before Pilate asking that the legs of these three men be broken, that they be dispatched, so that they could be taken down from their crosses and cast into the criminal burial pits before sundown. When Pilate heard this request, he forthwith sent three soldiers to break the legs and dispatch Jesus and the two brigands.

187:5.8 (2011.4) When these soldiers arrived at Golgotha, they did accordingly to the two thieves, but they found Jesus already dead, much to their surprise. However, in order to make sure of his death, one of the soldiers pierced his left side with his spear. Though it was common for the victims of crucifixion to linger alive upon the cross for even two or three days, the overwhelming emotional agony and the acute spiritual anguish of Jesus brought an end to his mortal life in the flesh in a little less than five and one-half hours.

6. AFTER THE CRUCIFIXION

187:6.1 (2011.5) In the midst of the darkness of the sandstorm,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David Zebedee sent out the last of the messengers carrying the news of the Master's death. The last of his runners he dispatched to the home of Martha and Mary in Bethany, where he supposed the mother of Jesus stopped with the rest of her family.

187:6.2 (2011.6) After the death of the Master, John sent the women, in charge of Jude,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tarried over the Sabbath day. John himself, being well known by this time to the Roman centurion, remained at Golgotha until Joseph and Nicodemus arrived on the scene with an order from Pilate authorizing them to take possession of the body of Jesus.

187:6.3 (2011.7) Thus ended a day of tragedy and sorrow for a vast universe whose myriads of intelligences had shuddered at the shocking spectacle of the crucifixion of the human

서리를 졌다. 이렇게 나타난 필사자의 무정(無情)
함과 인간의 타락에 경악했다.

incarnation of their beloved Sovereign; they were
stunned by this exhibition of mortal callousness
and human perversity.

제 188 편 무덤에서의 시간

⇨ 187

유랜시아 책

189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8 편 무덤에서의 시간

섹션

소개

제 1 장. 예수의 매장

제 2 장. 무덤을 지키

제 3 장.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제 4 장. 십자가 죽음의 의미

제 5 장. 십자가의 교훈

PAPER 188

THE TIME OF THE TOMB

SECTIONS

Introduction

1. The Burial of Jesus

2. Safeguarding the Tomb

3. During the Sabbath Day

4.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5. Lessons from the Cross

소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부활까지, 예수의 시신이 요셉의 무덤에 있었던 하루 반나절 동안은, 미가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들 중에서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을 매장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의 부활과 관계된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아침 3시까지, 약 36시간의 이 신(新)시대 동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그 확실한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주(主)의 일생 중에서 이 기간은 그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기 직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돌아가신 후로 약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두 강도를 죽이는 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그의 시신이 보다 빨리 내려졌을 것이다.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그 성의 남쪽에 있는 게헨나 라는 넓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계획이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주(主)의 시신은 맹수들에게 뜯겼을 것이다.

한편,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들이 적절하게 장사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NTRODUCTION

188:0.1 (2012.1) THE day and a half that Jesus' mortal body lay in the tomb of Joseph, the period between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is a chapter in the earth career of Michael which is little known to us. We can narrate the burial of the Son of Man and put in this record the events associated with his resurrection, but we cannot supply much information of an authentic nature about what really transpired during this epoch of about thirty-six hours, from three o'clock Friday afternoon to three o'clock Sunday morning. This period in the Master's career began shortly before he was taken down from the cross by the Roman soldiers. He hung upon the cross about one hour after his death. He would have been taken down sooner but for the delay in dispatching the two brigands.

188:0.2 (2012.2) The rulers of the Jews had planned to have Jesus' body thrown in the open burial pits of Gehenna, south of the city; it was the custom thus to dispose of the victims of crucifixion. If this plan had been followed, the body of the Master would have been exposed to the wild beasts.

188:0.3 (2012.3) In the meantime, Joseph of Arimathea, accompanied by Nicodemus, had gone to Pilate and asked that the body of Jesus be turned over to them for proper burial. It was not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친구들이 그 시체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로마 당국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요셉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빌라도에게 갔으며, 예수의 시신을 사유(私有) 매장지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그 요청을 들었을 때, 그는 요셉으로 하여금 골고다에 가서 주(主)의 시신을 즉시 그에게 소유하도록 한다는 명령서에 바로 서명을 하였다. 그 동안, 모래 폭풍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강도들의 시체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옮은 공공 매장지 구덩이에 던져 넣기 위하여, 산헤드린에서 보낸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골고다로 출발하였다.

uncommon for friends of crucified persons to offer bribes to the Roman authorities for the privilege of gaining possession of such bodies. Joseph went before Pilate with a large sum of money, in case it became necessary to pay for permission to remove Jesus' body to a private burial tomb. But Pilate would not take money for this. When he heard the request, he quickly signed the order which authorized Joseph to proceed to Golgotha and take immediate and full possession of the Master's body. In the meantime, the sandstorm having considerably abated, a group of Jews representing the Sanhedrin had gone out to Golgotha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Jesus' body accompanied those of the brigands to the open public burial pits.

제 1 장. 예수의 매장

요셉과 니고데모가 골고다에 도착하였을 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있고, 죄수를 매장하는 구덩이로 그의 시신을 옮겨가는 일을 예수의 추종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감시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다. 요셉이 주(主)의 시신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서를 백부장에게 제시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들이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맹렬하게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행동에 옮기려고 하자, 백부장은 네 명의 군인에게 옆에 서도록 명령하였으며, 그들은 칼을 빼들고 땅에 눕혀져 있는 주(主)의 몸 좌우에 버티고 섰다.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화난 유대인들을 뒤로 물리치는 동안, 강도들의 시체를 치우도록 하였다. 질서가 회복된 후에, 백부장은 빌라도가 보낸 명령서를 유대인들에게 읽어주고, 옆으로 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신은 당신의 소유이니 소견대로 하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군인들과 함께 지켜 주겠소.”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유대인의 무덤에 묻힐 수 없었다; 그러한 절차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법을 알고 있었으며,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요셉이 새로 만든 가족묘에 예수를 묻기로 결정했었으며, 그 묘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 건너편, 골고다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단단한 바위를 파내서 만든 것이었다.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히지 않았으며, 그들은 주(主)를 그곳에 눕히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요셉은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실 것을 실제로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거의 믿지 않았다. 전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 공회를 그만두기 전에도 산헤드린 회원 동료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비밀리에 지키고 있었다. 이 날 이후로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가장 과감하게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4시 30분경에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길

1. THE BURIAL OF JESUS

188:1.1 (2012.4) When Joseph and Nicodemus arrived at Golgotha, they found the soldiers taking Jesus down from the cros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anhedrin standing by to see that none of Jesus' followers prevented his body from going to the criminal burial pits. When Joseph presented Pilate's order for the Master's body to the centurion, the Jews raised a tumult and clamored for its possession. In their raving they sought violently to take possession of the body, and when they did this, the centurion ordered four of his soldiers to his side, and with drawn swords they stood astride the Master's body as it lay there on the ground. The centurion ordered the other soldiers to leave the two thieves while they drove back this angry mob of infuriated Jews. When order had been restored, the centurion read the permit from Pilate to the Jews and, stepping aside, said to Joseph: "This body is yours to do with as you see fit. I and my soldiers will stand by to see that no man interferes."

188:1.2 (2013.1) A crucified person could not be buried in a Jewish cemetery; there was a strict law against such a procedure. Joseph and Nicodemus knew this law, and on the way out to Golgotha they had decided to bury Jesus in Joseph's new family tomb, hewn out of solid rock, located a short distance north of Golgotha and across the road leading to Samaria. No one had ever lain in this tomb, and they thought it appropriate that the Master should rest there. Joseph really believed that Jesus would rise from the dead, but Nicodemus was very doubtful. These former members of the Sanhedrin had kept their faith in Jesus more or less of a secret, although their fellow Sanhedrists had long suspected them, even before they withdrew from the council. From now on they were the most outspoken disciples of Jesus in all Jerusalem.

188:1.3 (2013.2) At about half past four o'clock the

건너편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골고다를 출발하였다. 그 시신은 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세마포로 싸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신실한 여인 감시자들이 뒤를 따라갔다. 예수 시신을 운반한 사람들은: 요셉, 니고데모, 요한,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무덤 안으로 운반하였으며, 사방 10피트 정도 되는 묘실 안에서 급히 장사지낼 준비를 하였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다; 그들은 실제 향유로 방부 처리하였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몰약과 향료를 가져왔으며, 이 액체들을 적신 헝겊으로 시신을 싸들었다. 향유로 방부 처리하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몸을 세마포로 감았으며 무덤 안에 있는 선반 위에 존경을 담아서 눕혀 놓았다.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킨 후에,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내어 무덤 입구에 돌로 된 문을 굴리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강도들의 시체를 게헨나로 옮기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슬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날은 준비일 이었고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의 장사는 매우 급하게 서둘러 치러졌다. 남자들은 서둘러 도시로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아주 캄캄할 때까지도 무덤 곁에 있었다.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여인들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主)가 어디에 안치되는 지를 보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시간에 여인들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장사지낼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기들이 요셉의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내고 향료와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의 휴식을 위하여 예수의 시신을 준비하도록 일요일 아침에 정확히 돌아오도록 그들끼리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예수의 또 다른 이모 마르다, 그리고 세포리의 레베카였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의 요셉을 제외하고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실제로 믿거나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 2 장. 무덤을 지키

세 번째 날에 무덤에서 일어나리라는 그의 약속에 대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관심하였더라도, 그의 적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사제

burial procession of Jesus of Nazareth started from Golgotha for Joseph's tomb across the way. The body was wrapped in a linen sheet as the four men carried it, followed by the faithful women watchers from Galilee. The mortals who bore the material body of Jesus to the tomb were: Joseph, Nicodemus, John, and the Roman centurion.

188:1.4 (2013.3) They carried the body into the tomb, a chamber about ten feet square, where they hurriedly prepared it for burial. The Jews did not really bury their dead; they actually embalmed them. Joseph and Nicodemus had brought with them large quantities of myrrh and aloes, and they now wrapped the body with bandages saturated with these solutions. When the embalming was completed, they tied a napkin about the face, wrapped the body in a linen sheet, and reverently placed it on a shelf in the tomb.

188:1.5 (2013.4) After placing the body in the tomb, the centurion signaled for his soldiers to help roll the doorstone up before the entrance to the tomb. The soldiers then departed for Gehenna with the bodies of the thieves while the others returned to Jerusalem, in sorrow, to observe the Passover feast according to the laws of Moses.

188:1.6 (2013.5) There was considerable hurry and haste about the burial of Jesus because this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drawing on apace. The men hurried back to the city, but the women lingered near the tomb until it was very dark.

188:1.7 (2013.6) While all this was going on, the women were hiding near at hand so that they saw it all and observed where the Master had been laid. They thus secreted themselves because it was not permissible for women to associate with men at such a time. These women did not think Jesus had been properly prepared for burial, and they agreed among themselves to go back to the home of Joseph, rest over the Sabbath, make ready spices and ointments, and return on Sunday morning properly to prepare the Master's body for the death rest. The women who thus tarried by the tomb on this Friday evening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wife of Clopas, Martha another sister of Jesus' mother, and Rebecca of Sepphoris.

188:1.8 (2013.7) Aside from David Zebedee and Joseph of Arimathea, very few of Jesus' disciples really believed or understood that he was due to arise from the tomb on the third day.

2. SAFEGUARDING THE TOMB

188:2.1 (2014.1) If Jesus' followers were unmindful of his promise to rise from the grave on the third day, his enemies were not. The chief priests,

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받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

그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자정 무렵이 되어서, 유대인 영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세 번째 날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주(主)의 단언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의논하였다. 이 회의는 산헤드린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예수의 친구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의 무덤 앞에 로마 경비병을 세워 달라는 산헤드린의 공식 요청을 가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끝이 났다. 이 위원회의 대변인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삼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그 세 번째 날이 지날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야밤에 그를 훔쳐간 후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는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를 살려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의 이러한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열 명의 군인들을 경비원으로 내어주겠다. 너희가 가서 무덤을 지켜라.”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비병을 열 명 더 보강하여, 열 명의 유대인 경비병들과 열 명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요셉의 무덤으로 행진하였으며, 무덤 앞을 지키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굴러다가 무덤 앞을 막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접근을 못하도록 돌 주위에 빌라도의 이름으로 봉인하였다. 그리고 이 20 명의 남자들은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지켰으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주었다.

제 3 장.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안식일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거의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며, 로마제국의 각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몰려 왔다. 이 날은 유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였으며, 모든 순례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에 전하기 위하여 성(城)에 남아 있으려고 하였다.

토요일 밤늦게, 요한 마가는 열 한 사도들을 비밀리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오도록 불렀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이틀 전에 자신들의 주(主)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동일한 다락방으로 자정이 지나기 직전에 모두 모였다.

Pharisees, and Sadducees recalled that they had received reports of his saying he would rise from the dead.

188:2.2 (2014.2) This Friday night, after the Passover supper, about midnight a group of the Jewish leaders gathered at the home of Caiaphas, where they discussed their fears concerning the Master's assertions that he woul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This meeting ended with the appointment of a committee of Sanhedrists who were to visit Pilate early the next day, bearing the official request of the Sanhedrin that a Roman guard be stationed before Jesus' tomb to prevent his friends from tampering with it. Said the spokesman of this committee to Pilate: "Sir, we remember that this deceiver, Jesus of Nazareth, said, while he was yet alive,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again.' We have, therefore, come before you to request that you issue such orders as will make the sepulchre secure against his followers, at least until after the third day. We greatly fear lest his disciples come and steal him away by night and then proclaim to the people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If we should permit this to happen, this mistake would be far worse than to have allowed him to live."

188:2.3 (2014.3) When Pilate heard this request of the Sanhedrists, he said: "I will give you a guard of ten soldiers. Go your way and make the tomb secure." They went back to the temple, secured ten of their own guards, and then marched out to Joseph's tomb with these ten Jewish guards and ten Roman soldiers, even on this Sabbath morning, to set them as watchmen before the tomb. These men rolled yet another stone before the tomb and set the seal of Pilate on and around these stones, lest they be disturbed without their knowledge. And these twenty men remained on watch up to the hour of the resurrection, the Jews carrying them their food and drink.

3. DURING THE SABBATH DAY

188:3.1 (2014.4) Throughout this Sabbath day the disciples and the apostles remained in hiding, while all Jerusalem discusse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There were almost one and one-half million Jews present in Jerusalem at this time, hailing from all parts of the Roman Empire and from Mesopotamia.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Passover week, and all these pilgrims would be in the city to lear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o carry the report back to their homes.

188:3.2 (2014.5) Late Saturday night, John Mark summoned the eleven apostles secretly to come to the home of his father, where, just before midnight, they all assembled in the same upper chamber where they had partaken of the Last Supper with their Master two nights previously.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 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롯과 유다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니고데모의 집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는 자기 메신저들에게 일요일 아침 그곳에 모두 모이도록 이미 지시해 두었다. 예수의 시신에 약품을 더 하기 위하여 향료를 준비한 갈릴리의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요셉의 새 무덤에서 그가 영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하루 반나절 동안 나사렛 예수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필사자들이 처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여, 내 혼을 당신의 손에 위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생각 조절자가 오래 전에 개인성구현되었고 예수의 필사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실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주(主)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물리적 죽음으로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예수가 잠시 동안 아버지의 손에 위탁한 것은 인간 체험의 기록을 맨션세계로 옮겨지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 마음을 영화(靈化)시켰던 조절자의 초기 활동에 대한 영 부분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의 체험 속에도 구체들에서 신앙이 자라 가는 필사자들의 영본성, 즉 혼과 비슷한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의 견해일 뿐이다—예수가 아버지께 무엇을 위탁하였는지 우리는 실제로 모른다.

주(主)의 육체적인 형체가 일요일 아침 3시경까지 요셉의 무덤 안에서 영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36 시간의 기간 동안 예수의 개인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이 감히 우리들끼리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였다:

1. 미가엘의 창조자 의식은 육체적 육신화와 연관된 필사자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해방되었음이 틀림없다.

2. 우리가 아는 예수의 전(前) 생각 조절자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연관된 하늘 무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3. 육신으로의 그의 일생동안에 이루어졌던,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습득된 영 정체성, 처음에 그의 생각 조절자의 직접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결코-중지되지 않은 아버지 뜻에 대한 선택으로 달성된 것처럼, 육체적 필요성과 이상적인 필사자 실존의 영적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의 완전한 조절로 이루어졌던 영 정체성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보호관리에 위탁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영 실체가 무활한

188:3.3 (2014.6) Mary the mother of Jesus, with Ruth and Jude, returned to Bethany to join their family this Saturday evening just before sunset. David Zebedee remained at the home of Nicodemus, where he had arranged for his messengers to assemble early Sunday morning. The women of Galilee, who prepared spices for the further embalming of Jesus' body, tarried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188:3.4 (2014.7) We are not able fully to explain just what happened to Jesus of Nazareth during this period of a day and a half when he was supposed to be resting in Joseph's new tomb. Apparently he died the same natural death on the cross as would any other mortal in the same circumstances. We heard him say,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We do not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such a statement inasmuch as his Thought Adjuster had long since been personalized and so maintained an existence apart from Jesus' mortal being. The Master's Personalized Adjuster could in no sense be affected by his physical death on the cross. That which Jesus put in the Father's hands for the time being must have been the spirit counterpart of the Adjuster's early work in spiritizing the mortal mind so as to provide for the transfer of the transcript of the human experience to the mansion worlds. There must have been some spiritual reality in the experience of Jesus which was analogous to the spirit nature, or soul, of the faith-growing mortals of the spheres. But this is merely our opinion — we do not really know what Jesus commended to his Father.

188:3.5 (2015.1) We know that the physical form of the Master rested there in Joseph's tomb until about three o'clock Sunday morning, but we are wholly uncertai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personality of Jesus during that period of thirty-six hours. We have sometimes dared to explain these things to ourselves somewhat as follows:

188:3.6 (2015.2) 1. The Creator consciousness of Michael must have been at large and wholly free from its associated mortal mind of the physical incarnation.

188:3.7 (2015.3) 2. The former Thought Adjuster of Jesus we know to have been present on earth during this period and in personal command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188:3.8 (2015.4) 3. The acquired spirit identity of the man of Nazareth which was built up during his lifetime in the flesh, first, by the direct efforts of his Thought Adjuster, and later, by his own perfect adjustment between the physical necessities and the spiritual requirements of the ideal mortal existence, as it was effected by his never-ceasing choice of the Father's will, must have been consigned to the custody of the Paradise Father.

개인성의 일부분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에는 예수의 혼-정체성이, 외부 공간에 있는 미조직(未組織) 영역들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운명 속에 있는, 네바돈 최종의 무리단의 지도를 위하여 나중에 예정되도록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고 여기는 존재들이 있다.

4. 우리는 예수의 인간 혹은 필사자 의식(意識)이 이 36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예수가 이 기간 동안 우주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필사자 의식에 그 어떤 시간의 흐름도 없었다; 생명의 부활은 죽음의 잠을 자는 동시에 즉시 뒤따랐다.

이상이 예수가 무덤에 계시는 동안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전부이다. 우리가 암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관련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것들의 해석을 떠맡을 능력이 없다.

사타니아에 있는 첫 맨션세계 부활실의 거대한 뜰 안에서, “미가엘 기념관”이라고 알려진 장엄한 물질적-모론시아적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브리엘이 인봉해 놓았다. 이 기념관은 미가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에 만들어졌으며,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과정을 기념하여.”

그곳에는 이 기간 동안 구원자별의 최고 의회가 가브리엘의 주재 아래 유란시아에서 백여 회에 달하는 집행 회의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또한 그곳에는 유버사의 옛적으로 늘 계신 이가 이 기간 동안 네바돈의 우주 상태에 관하여 미가엘과 교통을 나눈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있다.

주(主)의 시신이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동안 구원자별에 있는 임마누엘과 미가엘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메시지가 교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예루셈에 있는 행성영주들의 체계 협의회에서 칼리가스티아의 자리에 어떤 개인성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

에덴시아의 기록들에 의하면,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아버지가 유란시아에 있었으며, 무덤에 있던 이 기간 동안 그가 미가엘로부터 지침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육체적 죽음의 이 시간동안 예수의 개인성의 모든 것이 잠들어 무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다.

Whether or not this spirit reality returned to become a part of the resurrected personality, we do not know, but we believe it did. But there are those in the universe who hold that this soul-identity of Jesus now reposes in the “bosom of the Father,” to be subsequently released for leadership of the Nebadon Corps of the Finality in their undisclosed destiny in connection with the uncreated universes of the unorganized realms of outer space.

188:3.9 (2015.5) 4. We think the human or mortal consciousness of Jesus slept during these thirty-six hours.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human Jesus knew nothing of what transpired in the universe during this period. To the mortal consciousness there appeared no lapse of time; the resurrection of life followed the sleep of death as of the same instant.

188:3.10 (2015.6) And this is about all we can place on record regarding the status of Jesus during this period of the tomb. There are a number of correlated facts to which we can allude, although we are hardly competent to undertake their interpretation.

188:3.11 (2015.7) In the vast court of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first mansion world of Satania, there may now be observed a magnificent material-morontia structure known as the “Michael Memorial,” now bearing the seal of Gabriel. This memorial was created shortly after Michael departed from this world, and it bears this inscription: “In commemoration of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on Urantia.”

188:3.12 (2016.1) There are records extant which show that during this period the supreme council of Salvington, numbering one hundred, held an executive meeting on Urantia under the presidency of Gabriel. There are also records showing that the Ancients of Days of Uversa communicated with Michael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verse of Nebadon during this time.

188:3.13 (2016.2) We know that at least one message passed between Michael and Immanuel on Salvington while the Master’s body lay in the tomb.

188:3.14 (2016.3) There is good reason for believing that some personality sat in the seat of Caligastia in the system council of the Planetary Princes on Jerusem which convened while the body of Jesus rested in the tomb.

188:3.15 (2016.4) The records of Edentia indicate that the Constellation Father of Norlatiadek was on Urantia, and that he received instructions from Michael during this time of the tomb.

188:3.16 (2016.5) And there is much other evidence which suggests that not all of the personality of Jesus was asleep and unconscious during this

time of apparent physical death.

제 4 장. 십자가 죽음의 의미

비록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죽으신 것은 필사 사람의 인종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일종의 효력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비록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면서,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물로 바친 것은 아니었지만; 속죄와 화해에 대한 이 관념들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이 죽음에는 중요한 의의(意義)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거주되고 있는 이웃 행성들에게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한껏 필사자 일생을 사시기를 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일생의 한 부분이다. 죽음은 필사자 드라마의 마지막 장(場)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의미를 거둬지게 해석하는 미신적인 실수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희의 선의의 노력들 속에서, 주(主)의 죽음에 대하여 진정한 중요성과 참된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필사 사람은 최고 사기꾼들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는 변절한 통치자들과 구체들의 타락한 영주들의 손아귀로부터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조상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필사자 혼을 파멸시킬 만큼 우둔한 불공정성을 마음에 품으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하느님께 갚아야 될 빚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의 희생물로서 주(主)가 죽으신 것도 아니었다.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이전에는, 너희가 아마도 그러한 하느님을 믿었어도 정당화되었을 것이나, 그러나 이제 주(主)가 너희 동료 필사자들 속에서 사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창조자 하느님의 위엄과 공의를 가르쳤지만;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묘사하였다.

동물적 본성—악을 행하려는 경향—은 유전적인 것이겠지만,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의식적인 행동이며, 의지를 가진 창조체 개별존재가 아버지의 뜻과 아들들의 법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수는 전체 우주를 위하여 사셨고 돌아가셨으며, 오직 이 세상 하나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영역들의 필사자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되심으로써 그 구원의 길이 엄청나게 밝혀진 것이 사실이다; 그의 죽음은 필사자가 육신적

4.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188:4.1 (2016.6) Although Jesus did not die this death on the cross to atone for the racial guilt of mortal man nor to provide some sort of effective approach to an otherwise offended and unforgiving God; even though the Son of Man did not offer himself as a sacrifice to appease the wrath of God and to open the way for sinful man to obtain salvation; notwithstanding that these ideas of atonement and propitiation are erroneous, nonetheless, there are significances attached to this death of Jesus on the cross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a fact that Urantia has become known among other neighboring inhabited planets as the “World of the Cross.”

188:4.2 (2016.7) Jesus desired to live a full mortal life in the flesh on Urantia. Death is, ordinarily, a part of life. Death is the last act in the mortal drama. In your well-meant efforts to escape the superstitious errors of the fals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death on the cross, you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the great mistake of failing to perceive the true significance and the genuine import of the Master's death.

188:4.3 (2016.8) Mortal man was never the property of the archdeceivers. Jesus did not die to ransom man from the clutch of the apostate rulers and fallen princes of the spheres. The Father in heaven never conceived of such crass injustice as damning a mortal soul because of the evil-doing of his ancestors. Neither was the Master's death on the cross a sacrifice which consisted in an effort to pay God a debt which the race of mankind had come to owe him.

188:4.4 (2016.9) Before Jesus lived on earth, you might possibly have been justified in believing in such a God, but not since the Master lived and died among your fellow mortals. Moses taught the dignity and justice of a Creator God; but Jesus portrayed the love and mercy of a heavenly Father.

188:4.5 (2016.10) The animal nature — the tendency toward evil-doing — may be hereditary, but sin is not transmitted from parent to child. Sin is the act of conscious and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Father's will and the Sons' laws by an individual will creature.

188:4.6 (2017.1) Jesus lived and died for a whole universe, not just for the races of this one world. While the mortals of the realms had salvation even before Jesus lived and died on Urantia, it is nevertheless a fact that his bestowal on this world greatly illuminated the way of salvation; his death did much to make forever plain the certainty of

인 죽음 이후에 생존한다는 확실성을 언제까지나 똑똑히 밝히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수를 희생자, 대속자,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를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구원(살아남음)의 길을 언제까지나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는 네바돈 우주들 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모든 필사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더욱 낮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너희가 하느님의 관념을, 나사렛 예수가 항상 가르쳤던 유일한 개념인,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로서 일단 파악이 되었다면, 너희가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원시적 생각을 당장에,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아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시적 관념은, 하느님이 그릇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늘 따져보고 탐지하고, 그들이 합당하게 벌 받는 것을 보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하느님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 받기를 자원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대리로 죽는 것을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화를 내는 주권자, 엄격하고 만능이신 통치자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신성한 본성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못하지 않다.

속죄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이 모든 개념은 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자기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영적 신자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최고의 개념이라고 예수는 가르치셨다. 구원은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적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인 욕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예수가 필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리하여, 섬기고자하는 사심-없는 욕구이어야만 한다.

또한 참된 신자들은 죄에 대한 앞으로의 형벌을 크게 염려하지도 않는다. 실제 신자는 오직 현재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을 뿐이다. 현명한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그리고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화가 나서 벌주지 않으며, 응징하기 위하여 혼내지도 않는다.

만약 하느님께서 공의가 최고를 지배하는 우주의 완고하고 율법적인 군주였다 하더라도, 그는 결백한 수난자를 죄 있는 범죄자와 바꾸는 어리석은 계획에 분명히 만족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 위대한 점은, 인간 체험의 질을 높이고 구원의 길을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그의 죽음 그 자체의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음을 맞으시면서 보여주신 당당한 태도와 비길 데 없는 영이다.

속죄의 배상이라는 이 모든 관념이 구원을 비현실의 수준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한 개념은 순

mortal survival after death in the flesh.

188:4.7 (2017.2) Though it is hardly proper to speak of Jesus as a sacrificer, a ransom, or a redeemer, it is wholly correct to refer to him as a savior. He forever made the way of salvation (survival) more clear and certain; he did better and more surely show the way of salvation for all the mortals of all the worlds of the universe of Nebadon.

188:4.8 (2017.3) When once you grasp the idea of God as a true and loving Father, the only concept which Jesus ever taught, you must forthwith, in all consistency, utterly abandon all those primitive notions about God as an offended monarch, a stern and all-powerful ruler whose chief delight is to detect his subjects in wrongdoing and to see that they are adequately punished, unless some being almost equal to himself should volunteer to suffer for them, to die as a substitute and in their stead. The whole idea of ransom and atone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God as it was taught and exemplified by Jesus of Nazareth. The infinite love of God is not secondary to anything in the divine nature.

188:4.9 (2017.4) All this concept of atonement and sacrificial salvation is rooted and grounded in selfishness. Jesus taught that service to one's fellows is the highest concept of the brotherhood of spirit believers. Salvation should be taken for granted by those who believe in the fatherhood of God. The believer's chief concern should not be the selfish desire for personal salvation but rather the unselfish urge to love and, therefore, serve one's fellows even as Jesus loved and served mortal men.

188:4.10 (2017.5) Neither do genuine believers trouble themselves so much about the future punishment of sin. The real believer is only concerned about present separation from God. True, wise fathers may chasten their sons, but they do all this in love and for corrective purposes. They do not punish in anger, neither do they chastise in retribution.

188:4.11 (2017.6) Even if God were the stern and legal monarch of a universe in which justice ruled supreme, he certainly would not be satisfied with the childish scheme of substituting an innocent sufferer for a guilty offender.

188:4.12 (2017.7) The great thing about the death of Jesus, as it is related to the enrichment of human experience and the enlargement of the way of salvation, is not the fact of his death but rather the superb manner and the matchless spirit in which he met death.

188:4.13 (2017.8) This entire idea of the ransom of the atonement places salvation upon a plane of

전히 철학적이다. 인간 구원은 실체이다; 그것은 창조체의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개별적 인간 체험 속에 합병됨으로써 파악될 두 가지 실체에 기초한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사실과 그것에 상응되는 진실인 사람의 형제신분이다. 아무튼,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 빚도 용서받는다”는 것은 진실이다.

제 5 장. 십자가의 교훈

참 목자는 자기 양떼 중에서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라도 최극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충만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들을 가족의 기반 위에 언제까지나 놓는다.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며; 사람은 그의 아들이다. 악을 행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벌을 가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왕의 공의가 아니라—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창조자와 창조체의 우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이룬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의 태도는 정죄(定罪)나 목인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사랑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언제까지나 보여준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생존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로 구원자이다. 예수는 그의 사랑이 인간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반응을 일깨울 만큼,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사랑은 정말로 전달되는 속성을 가지며 영원토록 창조성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켜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고 신성한 사랑을 예시한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공의—단지 기술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더 높은 본질특성의 올바름을 나타내었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히 그릇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흡수하고 실제적으로 파괴해 버린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자비로 하는 용서를 아주 초월한다. 자비는 악행의 죄를 한쪽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나 사랑은 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연약함을 언제까지나 파괴한다. 예수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유란시아에 전하였다. 그는 악에게 대항하지 말고 악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선을 그를 통하여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었다. 예수의 용서는 그저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은 그릇된 것들을 가버리여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을 올바르게 만든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파괴한다. 예수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용서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主)의 사랑은 갱생(更生)과 영원한 생존을 내포한다. 만일 너희가 이 영원한 갱생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대속(代贖)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예수는 사람에 대한 그의 개인적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죄와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방시키었다. 예수는 미래에 대한 승리가 자체적으로 약속된 해방을 과거에서부터 표현하였다, 그렇게 하여 용서가 구원을 마련하였다. 신

unreality; such a concept is purely philosophic. Human salvation is *real*; it is based on two realities which may be grasped by the creature's faith and thereby become incorporated into individual human experience: the fact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its correlated truth, the brotherhood of man. It is true, after all, that you are to be “forgiven your debts, even as you forgive your debtors.”

5. LESSONS FROM THE CROSS

188:5.1 (2017.9) The cross of Jesus portrays the full measure of the supreme devotion of the true shepherd for even the unworthy members of his flock. It forever places all relations between God and man upon the family basis. God is the Father; man is his son. Love, the love of a father for his son, becomes the central truth in the universe relations of Creator and creature — not the justice of a king which seeks satisfaction in the sufferings and punishment of the evil-doing subject.

188:5.2 (2018.1) The cross forever shows that the attitude of Jesus toward sinners was neither condemnation nor condonation, but rather eternal and loving salvation. Jesus is truly a savior in the sense that his life and death do win men over to goodness and righteous survival. Jesus loves men so much that his love awakens the response of love in the human heart. Love is truly contagious and eternally creative. Jesus' death on the cross exemplifies a love which is sufficiently strong and divine to forgive sin and swallow up all evil-doing. Jesus disclosed to this world a higher quality of righteousness than justice — mere technical right and wrong. Divine love does not merely forgive wrongs; it absorbs and actually destroys them. The forgiveness of love utterly transcends the forgiveness of mercy. Mercy sets the guilt of evil-doing to one side; but love destroys forever the sin and all weakness resulting therefrom. Jesus brought a new method of living to Urantia. He taught us not to resist evil but to find through him a goodness which effectually destroys evil. The forgiveness of Jesus is not condonation; it is salvation from condemnation. Salvation does not slight wrongs; it *makes them right*. True love does not compromise nor condone hate; it destroys it. The love of Jesus is never satisfied with mere forgiveness. The Master's love implies rehabilitation, eternal survival. It is altogether proper to speak of salvation as redemption if you mean this eternal rehabilitation.

188:5.3 (2018.2) Jesus, by the power of his personal love for men, could break the hold of sin and evil. He thereby set men free to choose better ways of living. Jesus portrayed a deliverance from the past which in itself promised a triumph for the future. Forgiveness thus provided salvation. The beauty

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일단 인간의 가슴속에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죄의 매력과 악의 힘을 억제하거나 부수어 버린다.

예수의 고난들이 십자가형 사건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안에서, 나사렛 예수가 실제적이고 격렬한 필사자 실존의 십자가 위에서 25년 이상을 보내졌다. 십자가의 실제 가치는 그것이 그의 사랑, 그의 자비의 완벽한 계시를, 최고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수백만의 거주하는 세상들에서, 도덕적 투쟁을 포기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단념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었던 진보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창조체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 사람의 사심-없는 봉사에 헌신으로 그의 육신화 생명을 버리시는 하느님의 모습에 고무되어 앞으로 나아갔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승리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태도의 정신 속에 모두 요약된다. 그가 “아버지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드셨다. 그러한 사랑의 헌신은 광대한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 나갔으며; 제자들은 주(主)로부터 그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봉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복음의 가장 최초의 선생은, 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십자가는 그의 동료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려 하였던 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최고에 대하여 최극 탄원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였던 것보다 더 큰사랑을 가질 수는 없다,—그리고 예수는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려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도 더 커다란 사랑을 소유하였다.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들에서도,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엄한 광경에 필사자들이 감동하였으며, 한편 그것은 천사들에게 최고의 헌신을 야기 시켰다.

십자가는 그의 동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그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룩한 봉사의 높은 상징이다. 십자가는 죄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무죄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성내신 하느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지구와 광대한 우주에 걸쳐, 그것은 악에 대한 그들의 선한 증여와 그리하여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상징으로 언제까지나 서있다. 십자가는, 비록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은 죽음의 경우에도, 최고 형태의 사심-없는 헌신, 전심으로 사명활동하는 봉사에 의로운 일생을 한껏 증여하는 최극 헌신의 상징으로 서있다. 그리고 예

of divine love, once fully admitted to the human heart, forever destroys the charm of sin and the power of evil.

188:5.4 (2018.3) The sufferings of Jesus were not confined to the crucifixion. In reality, Jesus of Nazareth spent upward of twenty-five years on the cross of a real and intense mortal existence. The real value of the cross consists in the fact that it was the supreme and final expression of his love, the completed revelation of his mercy.

188:5.5 (2018.4) On millions of inhabited worlds, tens of trillions of evolving creatures who may have been tempted to give up the moral struggle and abandon the good fight of faith, have taken one more look at Jesus on the cross and then have forged on ahead, inspired by the sight of God's laying down his incarnate life in devo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man.

188:5.6 (2018.5) The triumph of the death on the cross is all summed up in the spirit of Jesus' attitude toward those who assailed him. He made the cross an eternal symbol of the triumph of love over hate and the victory of truth over evil when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That devotion of love was contagious throughout a vast universe; the disciples caught it from their Master. The very first teacher of his gospel who was called upon to lay down his life in this service, said, as they stoned him to death,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188:5.7 (2018.6) The cross makes a supreme appeal to the best in man because it discloses one who wa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in the service of his fellow men. Greater love no man can have than this: that he would be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 and Jesus had such a love that he was willing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enemies, a love greater than any which had hitherto been known on earth.

188:5.8 (2019.1) On other worlds, as well as on Urantia, this sublime spectacle of the death of the human Jesus on the cross of Golgotha has stirred the emotions of mortals, while it has aroused the highest devotion of the angels.

188:5.9 (2019.2) The cross is that high symbol of sacred service, the devotion of one's life to the welfare and salvation of one's fellows. The cross is not the symbol of the sacrifice of the innocent Son of God in the place of guilty sinners and in order to appease the wrath of an offended God, but it does stand forever, on earth and throughout a vast universe, as a sacred symbol of the good bestowing themselves upon the evil and thereby saving them by this very devotion of love. The cross does stand as the token of the highest form of unselfish service, the supreme devotion of the

수가 증여한 일생의 이 커다란 상징의 바로 그 모습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원하도록 고무시킨다.

사고력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모습의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이 비록 최고로 심각한 일생의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그들은 도저히 다시 불평할 수 없을 것이며, 사소한 고민거리나 그들의 많은 순전히 허구적인 불평거리들의 경우에는 더욱 적을 것이다. 그의 일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승리에 찼으므로 우리 모두는 둘 모두를 공유하려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끌려진다. 예수의 소년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엄한 광경에 이르기까지, 미가엘의 전체 증여에는 진실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를 하느님의 계시로서 바라볼 때, 너희가 원시인의 눈이나 그 후의 미개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확실히 하여라, 그들은 하느님을 엄격한 공의와 엄정한 법 집행의 냉혹한 주권자로 간주한다. 오히려, 예수가 그의 광대한 우주에 있는 필사 종족들에게 증여로 그의 일생의 임무에 쏟으신 그의 사랑과 헌신의 최종적인 현시활동을 십자가에서 너희가 보도록 확실히 하여라. 필사 구체들에 있는 그의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이 전개되는 절정을 사람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보아라. 그리하여, 십자가는 그러한 선물들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는 애정의 헌신과 자발적인 구원의 증여를 표현한다. 십자가에는 아버지께서 요구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오직 예수가 자진해서 주었으며, 그가 피하기를 거부하였다.

만일 사람이 달리 예수를 깊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땅에서의 그의 증여의 의미를 납득할 수도 없어도, 적어도 그가 필사자로서 고통을 겪은 그러한 그의 동료관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자신의 현재적 고통의 본성이나 정도를 창조자가 알지 못한다고 걱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화해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아들의 끝남이 없는 자비에 대한 사람의 실현을 자극하고 이 우주의 진리들을 전체 우주에 널리 알리기 위하였다는 것을 안다.

full bestowal of a righteous life in the service of wholehearted ministry, even in death, the death of the cross. And the very sight of this great symbol of the bestowal life of Jesus truly inspires all of us to want to go and do likewise.

188:5.10 (2019.3) When thinking men and women look upon Jesus as he offers up his life on the cross, they will hardly again permit themselves to complain at even the severest hardships of life, much less at petty harassments and their many purely fictitious grievances. His life was so glorious and his death so triumphant that we are all enticed to a willingness to share both. There is true drawing power in the whole bestowal of Michael, from the days of his youth to this overwhelming spectacle of his death on the cross.

188:5.11 (2019.4) Make sure, then, that when you view the cross as a revelation of God, you do not look with the eyes of the primitive man nor with the viewpoint of the later barbarian, both of whom regarded God as a relentless Sovereign of stern justice and rigid law-enforcement. Rather, make sure that you see in the cross the final manifestation of the love and devotion of Jesus to his life mission of bestowal upon the mortal races of his vast universe. See in the death of the Son of Man the climax of the unfolding of the Father's divine love for his sons of the mortal spheres. The cross thus portrays the devotion of willing affection and the bestowal of voluntary salvation upon those who are willing to receive such gifts and devotion. There was nothing in the cross which the Father required — only that which Jesus so willingly gave, and which he refused to avoid.

188:5.12 (2019.5) If man cannot otherwise appreciate Jesus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 bestowal on earth, he can at least comprehend the fellowship of his mortal sufferings. No man can ever fear that the Creator does not know the nature or extent of his temporal afflictions.

188:5.13 (2019.6) We know that the death on the cross was not to effect man's reconciliation to God but to stimulate man's *realization* of the Father's eternal love and his Son's unending mercy, and to broadcast these universal truths to a whole universe.

제 189 편 부활

⇨ 188

유란시아 책

190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89 편 부활

섹션

소개

제 1 장. 모른시아 전환

제 2 장. 예수의 물질적인 몸

제 3 장. 섬리시대적 부활

제 4 장. 빈 무덤 발견

제 5 장.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PAPER 189

THE RESURRECT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Morontia Transit

2. The Material Body of Jesus

3.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4. Discovery of the Empty Tomb

5. Peter and John at the Tomb

소개

금요일 오후, 예수를 장사지낸 이후 바로, 그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잠자는 의지 창조체의 부활에 대하여 그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위한 가능한 기법의 숙고에 들어갔다. 미가엘의 창조체들인 소집된 지역 우주의 이 아들들은 그들 자신들의 책임아래 이 일을 하였다.; 가브리엘이 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이 창조체는 창조자의 부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가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취할 힘도 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브리엘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천사장들, 생명운반자들, 그리고 창조체의 갱생과 모른시아 창조의 일에 협동하는 그들의 다양한 연관-동료들의 이 회의가 산회된 조금 후에, 그 당시 유란시아에 집합된 하늘의 무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던 예수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는 애타게 기다리는 감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창조자-아버지가 생명으로 돌아오심에 너희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 그는 필사자 죽음을 체험하였다;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INTRODUCTION

189:0.1 (2020.1) SOON after the burial of Jesus on Friday afternoon, the chief of the archangels of Nebadon, then present on Urantia, summoned his council of the resurrection of sleeping will creatures and entered upon the consideration of a possible technique for the restoration of Jesus. These assembled sons of the local universe, the creatures of Michael, did this on their own responsibility; Gabriel had not assembled them. By midnight they had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creature could do nothing to facilitate the resurrection of the Creator. They were disposed to accept the advice of Gabriel, who instructed them that, since Michael had “laid down his life of his own free will, he also had power to take it up again in accordance with his own determination.” Shortly after the adjournment of this council of the archangels, the Life Carriers, and their various associates in the work of creature rehabilitation and morontia creation,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Jesus, being in personal command of the assembled celestial hosts then on Urantia, spoke these words to the anxious waiting watchers:

189:0.2 (2020.2) “Not one of you can do ought to assist your Creator-father in the return to life. As a mortal of the realm he has experienced mortal death; as the Sovereign of a universe he still lives. That

너희가 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육신의 일생으로부터 모론시아의 일생으로 옮겨가는 필사자 전환이다. 이 예수의 영적 전환은, 내가 그의 개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너희의 일시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완료되었다. 너희의 창조자-아버지는 그의 필사 창조체들의 전체 체험, 물질세계에 탄생으로부터 자연적인 죽음과 모론시아의 부활, 을 통하여 참된 영적 실존의 지위에 이르기로 선택하였다. 이 체험의 어떤 위상은 너희가 보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것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일상적으로 창조체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창조자를 위하여 할 수가 없다. 창조자 아들은 그가 창조한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입고도 자신을 증여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는 자신을 유지하는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을 그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지도에 의해서 이러한 힘을 가졌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들은 개인성구현된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가브리엘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케루빔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기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필사 육신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권자의 우주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인지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을 납득하지 못한 채, 일어날 일들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제 1 장. 모론시아 전환

일요일 아침 2시 45분에, 파라다이스의 미(未)-정체성확인된 일곱 개인성들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육신화 위원회가 그 현장에 도착하였고 즉시 무덤 주위에 배치되었다. 3시 10분 전, 물질적인 것과 모론시아의 복합된 활동들의 심한 진동이 요셉의 새 무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서기 30년 4월 9일인, 이 일요일 아침 3시 2분에, 나사렛 예수의 부활된 모론시아 형체와 개인성이 그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매장된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가 나오신 후에도, 그가 이 땅에서 약 36년 동안 그 속에서 사시고 지상에서 활동하였던 육신은 금요일 오후에 요셉과 그의 연관-동료들에 의해 영면하도록 놓여졌을 때와 똑같이, 훼손됨이 없이 세마포에 싸여 묘실에 아직 누워 있었다. 또한 무덤 입구를 막은 바위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빌라도의 봉인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군인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 임무수행을 하고 있었다; 로마 경비병은 자정 무렵에 교체되었다. 이들 감시자들의 누구도 그들의 감시 대상이 새롭고 더 높은 실존의 형태로 소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몸체는 이제 해방되고 부활된 예수의 모론시아 개인성과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려진 바깥 겹질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였다.

which you observe is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from life in the flesh to life in the morontia. The spirit transit of this Jesus was completed at the time I separated myself from his personality and became your temporary director. Your Creator-father has elected to pass through the whole of the experience of his mortal creatures, from birth on the material worlds, on through natural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the morontia, into the status of true spirit existence. A certain phase of this experience you are about to observe, but you may not participate in it. Those things which you ordinarily do for the creature, you may not do for the Creator. A Creator Son has within himself the power to bestow himself in the likeness of any of his created sons; he has within himself the power to lay down his observable life and to take it up again; and he has this power because of the direct command of the Paradise Father, and I know whereof I speak.”

189:0.3 (2020.3) When they heard the Personalized Adjuster so speak, they all assumed the attitude of anxious expectancy, from Gabriel down to the most humble cherubim. They saw the mortal body of Jesus in the tomb; they detected evidences of the universe activity of their beloved Sovereign; and not understanding such phenomena, they waited patiently for developments.

1. THE MORONTIA TRANSIT

189:1.1 (2020.4) At two forty-five Sunday morning, the Paradise incarnation commission, consisting of seven unidentified Paradise personalities, arrived on the scene and immediately deployed themselves about the tomb. At ten minutes before three, intense vibrations of commingled material and morontia activities began to issue from Joseph's new tomb, and at two minutes past three o'clock, this Sunday morning, April 9, A.D. 30, the resurrected morontia form and personality of Jesus of Nazareth came forth from the tomb.

189:1.2 (2021.1) After the resurrected Jesus emerged from his burial tomb, the body of flesh in which he had lived and wrought on earth for almost thirty-six years was still lying there in the sepulchre niche, undisturbed and wrapped in the linen sheet, just as it had been laid to rest by Joseph and his associates on Friday afternoon. Neither was the stone before the entrance of the tomb in any way disturbed; the seal of Pilate was still unbroken; the soldiers were still on guard. The temple guards had been on continuous duty; the Roman guard had been changed at midnight. None of these watchers suspected that the object of their vigil had risen to a new and higher form of existence, and that the body which they were guarding was now a discarded outer covering which had no further connection with the delivered and

인류는, 개인적인 것, 사물은 모든 것에서 모론시아의 뼈대이며, 그리고 그 둘은 영속하는 영실체의 반영된 그림자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공간을 파라다이스 실체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로 간주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창조체도, 그리고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개인성도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에 연관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그는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의 생명을 버렸다; 일요일 아침에 그는 놀라시아택에 있는 사타니아 체계의 모론시아 존재로 그것을 다시 취하였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그 시간 무렵에 우리가 진술한 대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한 예수의 필사자 물질적 유해는 수의에 싸인 채로 놓여져 있는 요셉의 새로운 무덤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 이러한 필사자 전환이나 모론시아 부활과 연관되어 모두에게 알려진 현상을 우리는 역시 기록할 수 있다.

이 모론시아의 깨움에 지역우주의 어떤 창조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개인성들이 무덤을 둘러싼 것을 알지만, 주(主)의 깨움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무덤 바로 위로 예수가 가브리엘 옆에 나타나자마자, 파라다이스로부터 온 일곱 개인성들은 즉시 유버사로 떠나겠다는 그들의 의사를 신호했다.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언제까지나 정립해 두기로 하자:

1. 그의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몸은 부활된 개인성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유체는 묘실 안에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밀라도의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매장된 무덤에서 나왔다.

2. 그는 영(靈)이나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었다; 유란시아에 필사육신과 같이 육신화하기 전의 그분이었던 창조자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

3. 그는, 부활된 모론시아 상승 존재들로서, 사타니아의 이 지역 체계의 첫 번째 맨션세계의 부활실에서 나오는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거의 똑같이, 요셉의 무덤에서 나왔다. 그리고 1번 맨션계 부활실들의 넓은 뜰 가운데에 있는 미가엘 기념관의 현존이 우리들에게 유란시아에서의 주(主)의 부활이 맨션세계들 체계의 첫 번째인 이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촉진되었다는 것을 유추하도록 이끈다.

resurrected morontia personality of Jesus.

189:1.3 (2021.2) Mankind is slow to perceive that, in all that is personal, matter is the skeleton of morontia, and that both are the reflected shadow of enduring spirit reality. How long before you will regard time as the moving image of eternity and space as the fleeting shadow of Paradise realities?

189:1.4 (2021.3) As far as we can judge, no creature of this universe nor any personality from another universe had anything to do with this morontia resurrection of Jesus of Nazareth. On Friday he laid down his life as a mortal of the realm; on Sunday morning he took it up again as a morontia being of the system of Satania in Norlatiadek. There is much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which we do not understand. But we know that it occurred as we have stated and at about the time indicated. We can also record that all known phenomena associated with this mortal transit, or morontia resurrection, occurred right there in Joseph's new tomb, where the mortal material remains of Jesus lay wrapped in burial cloths.

189:1.5 (2021.4) We know that no creature of the local universe participated in this morontia awakening. We perceived the seven personalities of Paradise surround the tomb, but we did not see them do anything in connection with the Master's awakening. Just as soon as Jesus appeared beside Gabriel, just above the tomb, the seven personalities from Paradise signalized their intention of immediate departure for Uversa.

189:1.6 (2021.5) Let us forever clarify the concep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by making the following statements:

189:1.7 (2021.6) 1. His material or physical body was not a part of the resurrected personality. When Jesus came forth from the tomb, his body of flesh remained undisturbed in the sepulchre. He emerged from the burial tomb without moving the stones before the entrance and without disturbing the seals of Pilate.

189:1.8 (2021.7) 2. He did not emerge from the tomb as a spirit nor as Michael of Nebadon; he did not appear in the form of the Creator Sovereign, such as he had had before his incarnation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on Urantia.

189:1.9 (2021.8) 3. He did come forth from this tomb of Joseph in the very likeness of the morontia personalities of those who, as resurrected morontia ascendant beings, emerge from the resurrection halls of the first mansion world of this local system of Satania. And the presence of the Michael memorial in the center of the vast court of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number one leads us to conjecture that the Master's resurrection on Urantia was in some way fostered on this, the first of the system mansion worlds.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활동은 가브리엘을 맞이하고는 그에게 임마누엘의 지도에 따라 우주의 관련자들을 집행하는 임무를 계속하도록 지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임마누엘에게 형제로서의 인사를 전하라고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에게 지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필사자 전환에 대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이의 확인이 있었는지를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들 계층의 창조체로서 그들의 창조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인,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무리들에게로 돌아서신 후, 예수님은 필사자-이후 생애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은 이렇다: “육신으로의 내 일생을 완결하였으므로, 나는 상승하는 나의 창조체들의 일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계시할 수 있도록, 과도기 형태를 가지고 이곳에 잠시 동안 머물고자 한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후에, 개인성구현된 조절자에게 신호를 보내셨으며, 부활을 지켜보기 위하여 유란시아에 모였던 모든 우주의 지능존재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 임지로 즉시 떠났다.

예수님은 이제 그가 유란시아에 잠시 동안 살려고 선택했던 일생에서의 요청들에 대하여, 창조체로서, 내보여지게 될, 모론시아 차원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세계로 들어가는 이 처음 의례는 지구 시간으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는 그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여길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빈 무덤 안을 기이하게 여기며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예전 연관-동료들과 교통하려는 그의 욕망 때문에 두 번 중단되었다.

이윽고 예수님의 필사자 전환—사람의 아들의 모론시아 부활—이 완료되었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간 개인성으로서 주(主)의 잠시 동안의 체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主)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였다; 어떤 개인성도 그를 돕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론시아의 예수로서 사시게 되었고, 이러한 모론시아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물질적 유체는 훼손됨이 없이 무덤 안에 놓여져 있었다. 군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바위에 붙어 있는 총독의 봉인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

제 2 장.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

3시 10분, 부활한 예수님이,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형제우애를 가지는 동안에, 천사장들—부활의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유체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권자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서의 모론시아 부활에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의 유체를 즉

189:1.10 (2022.1) The first act of Jesus on arising from the tomb was to greet Gabriel and instruct him to continue in executive charge of universe affairs under Immanuel, and then he directed the chief of the Melchizedeks to convey his brotherly greetings to Immanuel. He thereupon asked the Most High of Edentia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Ancients of Days as to his mortal transit; and turning to the assembled morontia groups of the seven mansion worlds, here gathered together to greet and welcome their Creator as a creature of their order, Jesus spoke the first words of the postmortal career. Said the morontia Jesus: “Having finished my life in the flesh, I would tarry here for a short time in transition form that I may more fully know the life of my ascendant creatures and further reveal the will of my Father in Paradise.”

189:1.11 (2022.2) After Jesus had spoken, he signaled to the Personalized Adjuster, and all universe intelligences who had been assembled on Urantia to witness the resurrection were immediately dispatched to their respective universe assignments.

189:1.12 (2022.3) Jesus now began the contacts of the morontia level, being introduced, as a creature, to the requirements of the life he had chosen to live for a short time on Urantia. This initiation into the morontia world required more than an hour of earth time and was twice interrupted by his desire to communicate with his former associates in the flesh as they came out from Jerusalem wondering to peer into the empty tomb to discover what they considered evidence of his resurrection.

189:1.13 (2022.4) Now is the mortal transit of Jesus —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the Son of Man — completed. The transitory experience of the Master as a personality midway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has begun. And he has done all this through power inherent within himself; no personality has rendered him any assistance. He now lives as Jesus of morontia, and as he begins this morontia life, the material body of his flesh lies there undisturbed in the tomb. The soldiers are still on guard, and the seal of the governor about the rocks has not yet been broken.

2. THE MATERIAL BODY OF JESUS

189:2.1 (2022.5) At ten minutes past three o'clock, as the resurrected Jesus fraternized with the assembled morontia personalities from the seven mansion worlds of Satania, the chief of archangels — the angels of the resurrection — approached Gabriel and asked for the mortal body of Jesus. Said the chief of the archangels: “We may not participate in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the

시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非)물질화의 기법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가속시키는 과정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께서 유란시아에 사시는 것과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무리들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유지자이신 그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부식되어 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네바돈 전체의 하늘 지능존재들의 이름으로 나는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필사 몸체의 보호관리를 위임해 주시어, 우리가 즉각적인 분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 선임자와 협의하였을 때, 하늘 무리들의 천사장 대변자는 그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의 물리적 잔재에 대한 그런 처분을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 요청이 허락된 후, 그는 모든 계층의 하늘 개인성들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많은 그의 동료들을 그의 보조로 소집하였고,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도움으로 예수 육체적 몸체를 점유하려 나섰다. 이 유체는 순수하게 물질적 창조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며 말 그대로였다; 그것은 부활의 모론시아 형태가 봉인된 묘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옮겨질 수는 없었다. 어떤 모론시아 보조 개인성들의 도움에 의하여, 모론시아 형태는 한 때 마치 영과 같이 그렇게 통상의 물질과는 무관하게 될 수 있고, 한편 또 다른 때에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과 같이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식별될 수 있고 또 접촉될 수 있다.

그들이 거의 순간적인 유체의 분해로, 존경을 담아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의 유체를 무덤에서 옮길 준비가 되었을 때, 무덤 입구에서 돌들을 굴러내는 일이 유란시아의 2차중도자들에게 할당되었다. 두 돌들 중에서 보다 큰 것은 맷돌 모양의 거대한 원형 바위였으며, 그것을 앞뒤로 움직여 무덤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바위 위를 끌고 파낸 홈을 따라서 움직였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인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이 거대한 돌이 길으로 보기에 저절로—그러한 움직임을 일으킬만한 수단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무덤 입구로부터 굴러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으며, 그 현장으로부터 급히 도망쳐 버렸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가 성전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 일들을 보고하였다. 로마인들은 안토니아의 요새로 도망갔고 백부장이 출근하자마자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그에게 보고하였다.

bestowal experience of Michael our sovereign, but we would have his mortal remains put in our custody for immediate dissolution. We do not propose to employ our technique of dematerialization; we merely wish to invoke the process of accelerated time. It is enough that we have seen the Sovereign live and die on Urantia; the hosts of heaven would be spared the memory of enduring the sight of the slow decay of the human form of the Creator and Upholder of a universe. In the name of the celestial intelligences of all Nebadon, I ask for a mandate giving me the custody of the mortal body of Jesus of Nazareth and empowering us to proceed with its immediate dissolution.”

189:2.2 (2023.1) And when Gabriel had conferred with the senior Most High of Edentia, the archangel spokesman for the celestial hosts was given permission to make such disposition of the physical remains of Jesus as he might determine.

189:2.3 (2023.2) After the chief of archangels had been granted this request, he summoned to his assistance many of his fellows, together with a numerous host of the representatives of all orders of celestial personalities, and then, with the aid of the Urantia midwayers, proceeded to take possession of Jesus' physical body. This body of death was a purely material creation; it was physical and literal; it could not be removed from the tomb as the morontia form of the resurrection had been able to escape the sealed sepulchre. By the aid of certain morontia auxiliary personalities, the morontia form can be made at one time as of the spirit so that it can become indifferent to ordinary matter, while at another time it can become discernible and contactable to material beings, such as the mortals of the realm.

189:2.4 (2023.3) As they made ready to remove the body of Jesus from the tomb preparatory to according it the dignified and reverent disposal of near-instantaneous dissolution, it was assigned the secondary Urantia midwayers to roll away the stone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The larger of these two stones was a huge circular affair, much like a millstone, and it moved in a groove chiseled out of the rock, so that it could be rolled back and forth to open or close the tomb. When the watching Jewish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in the dim light of the morning, saw this huge stone begin to roll away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apparently of its own accord — without any visible means to account for such motion — they were seized with fear and panic, and they fled in haste from the scene. The Jews fled to their homes, afterward going back to report these doings to their captain at the temple. The Romans fled to the fortress of Antonia and reported what they had seen to the centurion as soon as he arrived on duty.

유대인 영도자들은 반역자 유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야비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 경비병들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 대신에, 그들은 이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20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우리들을 갑자기 습격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유대인 영도자들은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혹시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경우에 그 총독 앞에서 군인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인의 믿음은 “빈 무덤”의 사실에 기초를 두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의 사실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아니다. 처음 신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은 주(主)의 확실한 부활에 대한 사실과 관계적-연합되어, 진실이 아닌 믿음, 곧 예수의 물질적이고 필사 육신이 무덤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가르침의 형성으로 이끌었다; 영적 실체들과 영원한 가치들과 관계가 있는 진리는 항상 분명한 사실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실들이 물질적으로 옳을지라도, 여러 사실들이 합쳐진 것이 반드시 참된 영적 결론들로 인도하는 결과가 아니다.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신이 회복되거나 부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적 지연의 간섭 없이 그리고 필사자 분해와 물질적으로 부패되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들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특별하고 독특한 분해를 잘 제공하자는 하늘 무리들의 요청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필사 유체는, 시간의 관점에서, 자연적 분해 방식이 크게 가속화되어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촉진되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몸체들의 특징에서처럼, 원소가 집대성-해체되는 똑 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겪은 것이었다.

비록 부활한 모로시아 주(主)를 만나고, 알아보고, 또한 같이 교제한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 가르침이 확증되기는 하지만, 미가엘 부활의 참된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이다. 그가 유란시아를 최종적으로 떠나시기까지 그는 거의 천 명에 달하는 인간 존재들의 개인적 체험의 일부가 되었다.

189:2.5 (2023.4) The Jewish leaders began the sordid business of supposedly getting rid of Jesus by offering bribes to the traitorous Judas, and now, when confronted with this embarrassing situation, instead of thinking of punishing the guards who deserted their post, they resorted to bribing these guards and the Roman soldiers. They paid each of these twenty men a sum of money and instructed them to say to all: “While we slept during the nighttime, his disciples came upon us and took away the body.” And the Jewish leaders made solemn promises to the soldiers to defend them before Pilate in case it should ever come to the governor’s knowledge that they had accepted a bribe.

189:2.6 (2023.5) The Christian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has been based on the fact of the “empty tomb.” It was indeed a *fact* that the tomb was empty, but this is not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The tomb was truly empty when the first believers arrived, and this fact, associated with that of the undoubted resurrection of the Master, led to the formulation of a belief which was not true: the teaching that the material and mortal body of Jesus was raised from the grave. Truth having to do with spiritual realities and eternal values cannot always be built up by a combination of apparent facts. Although individual facts may be materially true, it does not follow that the association of a group of facts must necessarily lead to truthful spiritual conclusions.

189:2.7 (2023.6) The tomb of Joseph was empty, not because the body of Jesus had been rehabilitated or resurrected, but because the celestial hosts had been granted their request to afford it a special and unique dissolution, a return of the “dust to dust,”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delays of time and without the operation of the ordinary and visible processes of mortal decay and material corruption.

189:2.8 (2024.1) The mortal remains of Jesus underwent the same natural process of elemental disintegration as characterizes all human bodies on earth except that, in point of time, this natural mode of dissolution was greatly accelerated, hastened to that point where it became well-nigh instantaneous.

189:2.9 (2024.2) The true evidences of the resurrection of Michael are spiritual in nature, albeit this teaching is corroborated by the testimony of many mortals of the realm who met, recognized, and communed with the resurrected morontia Master. He became a part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almost one thousand human beings before he finally took leave of Urantia.

제 3 장. 섭리시대적 부활

3. THE DISPENSATIONAL RESURRECTION

그 일요일 아침 4시 30분이 조금 지났을 때, 가브리엘은 천사장들을 그의 옆으로 모이게 하였으며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섭리시대의 종결에서의 일반 부활을 시작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엄청난 사건에 관계된 세라핌천사들과 케루빔 천사들의 커다란 무리가 알맞은 형태로 정렬되었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서서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아들도 그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도록 생명을 주셨다. 비록 내가 아직 우주 지배권 행사를 충분히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자아-부과한 이 제한이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 행성 부활의 호출을 시작하라.”

그 때 천사장들의 순환회로가 유란시아로부터 처음으로 작동되었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들이 행성의 영적 극(極)점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내자, 맨션세계들 체계의 첫 번째 세계에, “미가엘의 명령이니, 유란시아 섭리시대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는 가브리엘의 음성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담 시대 이후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던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의 모든 생존자들, 그리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이 모론시아 상태가 될 준비를 갖추고 맨션세계의 부활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라핌천사들과 그들의 연관-동료들이 맨션세계들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단체적인 관리에 한번 배정된, 이 세라핌천사 수호자들은 맨션세계의 부활실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되어 이곳에 있는 가브리엘 현존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세계에 있었다.

개별적인 세라핌천사 수호천사를 가진 수 없이 많은 개별존재들과, 영적 개인성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성취한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의 시대들 동안에도 맨션세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란시아 아들들의 특별한 그리고 천 년 마다의 많은 부활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세 번째의 행성 출석 점호 혹은 완벽한 섭리시대적 부활들이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행성의 영주가 도착하였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담 시대에, 그리고 이번의 세 번째는 모론시아 부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전환을 신호로서 발생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행성 부활의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아들의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는, 지역우주의 모든 아들들을 그들 각자의 해당 지휘관들의 관할권 아래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의 권한을 유란시아에 모인 하늘 무리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미가엘의 필사자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임마누엘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구원자별로 떠났다. 그리고 유란

189:3.1 (2024.3) A little after half past four o'clock this Sunday morning, Gabriel summoned the archangels to his side and made ready to inaugurate the general resurrec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Adamic dispensation on Urantia. When the vast host of the seraphim and the cherubim concerned in this great event had been marshaled in proper formation, the morontia Michael appeared before Gabriel, saying: "As my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as he given it to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Although I have not yet fully resumed the exercise of universe jurisdiction, this self-imposed limitation does not in any manner restrict the bestowal of life upon my sleeping sons; let the roll call of the planetary resurrection begin."

189:3.2 (2024.4) The circuit of the archangels then operated for the first time from Urantia. Gabriel and the archangel hosts moved to the place of the spiritual polarity of the planet; and when Gabriel gave the signal, there flashed to the first of the system mansion worlds the voice of Gabriel, saying: "By the mandate of Michael, let the dead of a Urantia dispensation rise!" Then all the survivors of the human races of Urantia who had fallen asleep since the days of Adam, and who had not already gone on to judgment, appeared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in readiness for morontia investiture. And in an instant of time the seraphim and their associates made ready to depart for the mansion worlds. Ordinarily these seraphic guardians, onetime assigned to the group custody of these surviving mortals, would have been present at the moment of their awaking in the resurrection halls of mansonia, but they were on this world itself at this time because of the necessity of Gabriel's presence here in connection with the morontia resurrection of Jesus.

189:3.3 (2024.5) Notwithstanding that countless individuals having personal seraphic guardians and those achieving the requisite attainment of spiritual personality progress had gone on to mansonia during the ages subsequent to the times of Adam and Eve, and though there had been many special and millennial resurrections of Urantia sons, this was the third of the planetary roll calls, or complete dispensational resurrections. The first occurred at the time of the arrival of the Planetary Prince, the second during the time of Adam, and this, the third, signalized the morontia resurrection, the mortal transit, of Jesus of Nazareth.

189:3.4 (2024.6) When the signal of the planetary resurrection had been received by the chief of archangels, the Personalized Adjuster of the Son of Man relinquished his authority over the celestial hosts assembled on Urantia, turning all these sons of the local universe back to the jurisdiction of their respective commanders. And when he had done this, he departed for Salvington to register

시아에서 근무하라고 요청받지 않은 모든 하늘 무리들은 즉시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모로시아 예수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시야의 한계들에서 자유로운,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본 자들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부활 사건들의 설명이다.

제 4 장. 빈 무덤 발견

일요일 새벽 예수가 부활한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열 명의 사도들이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그 다락방 안에, 주(主)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기대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의자 위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도마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모여 있었다. 도마는 그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던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둘러본 후에 즉시 그 방을 떠났으며,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불행을 혼자서 비통해 할 생각이었다. 사도들 모두가 겪은 고통은 의심과 절망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비탄 그리고 수치심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니고데모의 집에는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예루살렘 제자들 중에서 보다 두드러진 12명 내지 15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는 15명 내지 20명의 지도적인 여자 신도들이 있었다. 오직 이 여인들만이 요셉의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기간 동안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 시간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비부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번째 돌을 무덤 앞에 굴러 놓았다는 사실과, 이 두 돌들에 빌라도의 봉인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 일요일 아침 세시 조금 전, 날이 밝아오는 첫 번째 정후가 동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다섯 명의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양의 특별한 향료 기름을 준비하였으며, 많은 세마포 형질을 가져갔다. 그것은 예수의 시신에 더욱 완벽하게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형질로 조심스럽게 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길을 떠난 여인들은 다음과 같다: 막달라 마리아, 알페오 쌍둥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 추자의 아내 요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에즈라의 딸 수잔나.

with Immanuel the completion of the mortal transit of Michael. And he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ll the celestial host not required for duty on Urantia. But Gabriel remained on Urantia with the morontia Jesus.

189:3.5 (2025.1) And this is the recital of the event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as viewed by those who saw them as they really occurred, free from the limitations of partial and restricted human vision.

4. DISCOVERY OF THE EMPTY TOMB

189:4.1 (2025.2) As we approach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on this early Sunday morning, it should be recalled that the ten apostles were sojourning at the home of Elijah and Mary Mark, where they were asleep in the upper chamber, resting on the very couches whereon they reclined during the last supper with their Master. This Sunday morning they were all there assembled except Thomas. Thomas was with them for a few minutes late Saturday night when they first got together, but the sight of the apostles, coupled with the thought of what had happened to Jesus, was too much for him. He looked his associates over and immediately left the room, going to the home of Simon in Bethpage, where he thought to grieve over his troubles in solitude. The apostles all suffered, not so much from doubt and despair as from fear, grief, and shame.

189:4.2 (2025.3) At the home of Nicodemus there were gathered together, with David Zebedee and Joseph of Arimathea, some twelve or fifteen of the more prominent of the Jerusalem disciples of Jesus.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there were some fifteen or twenty of the leading women believers. Only these women abode in Joseph's house, and they had kept close within during the hours of the Sabbath day and the evening after the Sabbath, so that they were ignorant of the military guard on watch at the tomb; neither did they know that a second stone had been rolled in front of the tomb, and that both of these stones had been placed under the seal of Pilate.

189:4.3 (2025.4) A little before three o'clock this Sunday morning, when the first signs of day began to appear in the east, five of the women started out for the tomb of Jesus. They had prepared an abundance of special embalming lotions, and they carried many linen bandages with them. It was their purpose more thoroughly to give the body of Jesus its death anointing and more carefully to wrap it up with the new bandages.

189:4.4 (2025.5) The women who went on this mission of anointing Jesus' body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the Alpheus twins, Salome the mother of the Zebedee brothers, Joanna the wife of Chuza, and Susanna the daughter of Ezra of

기름을 소지하고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은 3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을 지나올 때, 여러 명의 군인들이 매우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도시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지체하였지만;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자,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를 도와서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서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이히 여기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다보았다.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보다 작은 바윗돌을 옆으로 비키면서, 열린 묘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무덤은 길 동편 언덕 위에 있는 그의 공원 안에 있었고, 동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때에는 새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진 후였으므로 마리아는 주(主)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눕혀 놓았던 바위의 오목한 곳에서, 마리아는 오직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접혀진 수건과, 하늘 무리들이 그 시신을 치우기 전에 그들이 돌 위에 넣어 놓았던 대로 천에 싸여 원래 대로 눕혀져 있던 천들만 보았다. 덮어 씌웠던 천은 시신이 눕혀져 있던 밧 끝 쪽에 있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잠시 동안 기다린 후에야(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오직 수의들만 있음을 보았으며,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여인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문에서 집에 질린 군인들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몹시 초조하였으므로, 마리아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단숨에 다마스쿠스 문까지 달려갔다. 그때 요안나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마리아를 그곳에 두고 자기들만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행자들을 불러 세운 후에, 다시 무덤으로 향하였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할 자매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려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 가까이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달려와서 흥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그가 거기에 없다—저들이 그를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으며, 모두 들어가서 그곳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섯 명의 여인들이 모두 입구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이 생각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안식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

Alexandria.

189:4.5 (2025.6) It was about half past three o'clock when the five women, laden with their ointments, arrived before the empty tomb. As they passed out of the Damascus gate, they encountered a number of soldiers fleeing into the city more or less panic-stricken, and this caused them to pause for a few minutes; but when nothing more developed, they resumed their journey.

189:4.6 (2025.7) They were greatly surprised to see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inasmuch as they had said among themselves on the way out, “Who will help us roll away the stone?” They set down their burdens and began to look upon one another in fear and with great amazement. While they stood there, atremble with fear, Mary Magdalene ventured around the smaller stone and dared to enter the open sepulchre. This tomb of Joseph was in his garden on the hillside on the eastern side of the road, and it also faced toward the east. By this hour there was just enough of the dawn of a new day to enable Mary to look back to the place where the Master's body had lain and to discern that it was gone. In the recess of stone where they had laid Jesus, Mary saw only the folded napkin where his head had rested and the bandages wherewith he had been wrapped lying intact and as they had rested on the stone before the celestial hosts removed the body. The covering sheet lay at the foot of the burial niche.

189:4.7 (2026.1) After Mary had tarried in the doorway of the tomb for a few moments (she did not see distinctly when she first entered the tomb), she saw that Jesus' body was gone and in its place only these grave cloths, and she uttered a cry of alarm and anguish. All the women were exceedingly nervous; they had been on edge ever since meeting the panicky soldiers at the city gate, and when Mary uttered this scream of anguish, they were terror-stricken and fled in great haste. And they did not stop until they had run all the way to the Damascus gate. By this time Joanna was conscience-stricken that they had deserted Mary; she rallied her companions, and they started back for the tomb.

189:4.8 (2026.2) As they drew near the sepulchre, the frightened Magdalene, who was even more terrorized when she failed to find her sisters waiting when she came out of the tomb, now rushed up to them, excitedly exclaiming: “He is not there — they have taken him away!” And she led them back to the tomb, and they all entered and saw that it was empty.

189:4.9 (2026.3) All five of the women then sat down on the stone near the entrance and talked over the situation. It had not yet occurred to them that Jesus had been resurrected. They had been by themselves over the Sabbath, and they

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숙고할 때,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에는 주의할 기율이 되지 못하였다; 시신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싼 그 형겅들은 어떻게 하여 묘실 전반 위 똑같은 자리에 명백히 원래대로 남겨져 있었겠는가?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한 쪽 옆에 아무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발견하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다시 놀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그를 정원 관리인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 주(主)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이 그를 어느 곳에 눕혀 놓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데려오게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 낯선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요셉의 무덤에 눕혀졌던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그 여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 하였지만, 주(主)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었으므로 여습푸레하게 밝아오는 빛을 등지고 계시는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들었던 동정심과 애정에 넘치는 인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것이 주(主)의 음성인 것을 알아보았으며,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主)시여!” 그제야 다른 여인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가 주(主)이신 것을 알아보았으며, 신속히 그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들의 눈이 모론시아 형태의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어떤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공동으로 작용한, 변환자들과 중도자들의 특별한 사명활동 때문이었다.

마리아가 그의 발을 껴안으려고 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리아야, 내가 육신으로 나를 알았던 것과 같은 내가 아님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태로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모두 가서,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내가 부활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나와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전해라.”

이 여인들은, 놀라서 어리벉벉하였던 충격에서 벗어나자, 급히 도시로 돌아가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곳에 있는 열 명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사도들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가 자기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되풀이하여 말하였을 때, 주(主)가 자기

conjectured that the body had been moved to another resting place. But when they pondered such a solution of their dilemma, they were at a loss to account for the orderly arrangement of the grave cloths; how could the body have been removed since the very bandages in which it was wrapped were left in position and apparently intact on the burial shelf?

189:4.10 (2026.4) As these women sat there in the early hours of the dawn of this new day, they looked to one side and observed a silent and motionless stranger. For a moment they were again frightened, but Mary Magdalene, rushing toward him and addressing him as if she thought he might be the caretaker of the garden, said, “Where have you taken the Master? Where have they laid him? Tell us that we may go and get him.” When the stranger did not answer Mary, she began to weep. Then spoke Jesus to them, saying, “Whom do you seek?” Mary said: “We seek for Jesus who was laid to rest in Joseph’s tomb, but he is gone. Do you know where they have taken him?” Then said Jesus: “Did not this Jesus tell you, even in Galilee, that he would die, but that he would rise again?” These words startled the women, but the Master was so changed that they did not yet recognize him with his back turned to the dim light. And as they pondered his words, he addressed the Magdalene with a familiar voice, saying, “Mary.” And when she heard that word of well-known sympathy and affectionate greeting, she knew it was the voice of the Master, and she rushed to kneel at his feet while she exclaimed, “My Lord, and my Master!” And all of the other women recognized that it was the Master who stood before them in glorified form, and they quickly knelt before him.

189:4.11 (2027.1) These human eyes were enabled to see the morontia form of Jesus because of the special ministry of the transformers and the midwayers in association with certain of the morontia personalities then accompanying Jesus.

189:4.12 (2027.2) As Mary sought to embrace his feet, Jesus said: “Touch me not, Mary, for I am not as you knew me in the flesh. In this form will I tarry with you for a season before I ascend to the Father. But go, all of you, now and tell my apostles — and Peter — that I have risen, and that you have talked with me.”

189:4.13 (2027.3) After these women had recovered from the shock of their amazement, they hastened back to the city and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related to the ten apostles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but the apostles were not inclined to believe them. They thought at first that the women had seen a vision, but when Mary Magdalene repeated the words which Jesus had

이름을 말씀하였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급히 무덤에 가서 이 일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다락방을 뛰쳐나갔으며, 요한이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여인들은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반복하여 말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직접 확인하려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제 5 장.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이 골고다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베드로의 생각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주(主)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였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의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반쯤 믿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약속을 회상하였다. 이상한 일이라는 하지만, 십자가형이 있는 이후로,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었다. 요한은 성 밖으로 급히 나가면서 기쁨과 희망의 야릇한 환희가 그의 혼 속에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主)를 정말 만났다는 것을 반쯤 납득하고 있었다.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은 그를 앞질러 뛰어갔으며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무덤을 보면서, 요한은 문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가 설명한 대로였다.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들어가서, 너무나 색다르게 놓여있는 수의들과 빈 무덤을 살펴보았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요한도 들어가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후에 그들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신들이 보고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무덤이 약탈당했다,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시신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기에는 무덤이 너무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어떻게 하여 형묘들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명백히 원래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고 보다 자세하게 수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면서 사도들에게 갔었지만, 그들이 모두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그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귀에 익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무덤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을 때, 주(主)는 다시 그녀에게 나

spoken to them, and when Peter heard his name, he rushed out of the upper chamber, followed closely by John, in great haste to reach the tomb and see these things for himself.

189:4.14 (2027.4) The women repeated the story of talking with Jesus to the other apostles, but they would not believe; and they would not go to find out for themselves as had Peter and John.

5. PETER AND JOHN AT THE TOMB

189:5.1 (2027.5) As the two apostles raced for Golgotha and the tomb of Joseph, Peter's thoughts alternated between fear and hope; he feared to meet the Master, but his hope was aroused by the story that Jesus had sent special word to him. He was half persuaded that Jesus was really alive; he recalled the promise to rise on the third day. Strange to relate, this promise had not occurred to him since the crucifixion until this moment as he hurried north through Jerusalem. As John hastened out of the city, a strange ecstasy of joy and hope welled up in his soul. He was half convinced that the women really had seen the risen Master.

189:5.2 (2027.6) John, being younger than Peter, outran him and arrived first at the tomb. John tarried at the door, viewing the tomb, and it was just as Mary had described it. Very soon Simon Peter rushed up and, entering, saw the same empty tomb with the grave cloths so peculiarly arranged. And when Peter had come out, John also went in and saw it all for himself, and then they sat down on the stone to ponder the meaning of what they had seen and heard. And while they sat there, they turned over in their minds all that had been told them about Jesus, but they could not clearly perceive what had happened.

189:5.3 (2027.7) Peter at first suggested that the grave had been rifled, that enemies had stolen the body, perhaps bribed the guards. But John reasoned that the grave would hardly have been left so orderly if the body had been stolen, and he also raised the question as to how the bandages happened to be left behind, and so apparently intact. And again they both went back into the tomb more closely to examine the grave cloths. As they came out of the tomb the second time, they found Mary Magdalene returned and weeping before the entrance. Mary had gone to the apostles believing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grave, but when they all refused to believe her report, she became downcast and despairing. She longed to go back near the tomb, where she thought she had heard the familiar voice of Jesus.

189:5.4 (2027.8) As Mary lingered after Peter and John had gone, the Master again appeared to her,

타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의심하지 말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리라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보다 먼저 내가 곧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마리아는 급히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와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그들의 조롱하는 태도는 사라졌으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saying: “Be not doubting; have the courage to believe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Go back to my apostles and again tell them that I have risen, that I will appear to them, and that presently I will go before them into Galilee as I promised.”

189:5.5 (2028.1) Mary hurried back to the Mark home and told the apostles she had again talked with Jesus, but they would not believe her. But when Peter and John returned, they ceased to ridicule and became filled with fear and apprehension.

제 190 편 예수의 모론티아 출현

⇨ 189

유랜시아 책

191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0 편 예수의 모론티아 출현

섹션

소개

제 1 장. 부활의 소식

제 2 장. 베다니에 나타나신 예수

제 3 장. 요셉의 집에서

제 4 장.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나심

제 5 장. 두 형제들과 같이 걸어가심

소개

부활한 예수는 이제, 그 영역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티아 생애를 체험하기 위하여, 유랜시아에서 잠시 동안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모론티아 생명에서의 이 시간이 그가 필사자로 육신화 했던 세상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예루셈에 있는 일곱 맨션세계들의 진보하는 모론티아 일생을 거쳐 가는 사타니아 필사자들의 체험과 모든 점에서 아주 닮은 것이다.

예수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고—생명의 자질—그로 하여금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한 이 모든 힘은, 그가 왕국을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고, 지금도 자연적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다.

세계들의 필사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가 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가지셨던 변화된 또는 모론티아 몸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몸들 속에는 순환되는 피가 없고, 그러한 존재들은 통상적인 물질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론티아 형태들은 실체이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를 본 것이었다; 그들은 환상이나 환각으로 인하여 자

PAPER 190

MORONTIA APPEARANCES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Heralds of the Resurrection

2. Jesus' Appearance at Bethany

3. At the Home of Joseph

4. Appearance to the Greeks

5. The Walk with Two Brothers

INTRODUCTION

190:0.1 (2029.1) THE resurrected Jesus now prepares to spend a short period on Urantia for the purpose of experiencing the ascending morontia career of a mortal of the realms. Although this time of the morontia life is to be spent on the world of his mortal incarnation, it will, however, be in all respects the counterpart of the experience of Satania mortals who pass through the progressive morontia life of the seven mansion worlds of Jerusalem.

190:0.2 (2029.2) All this power which is inherent in Jesus — the endowment of life — and which enabled him to rise from the dead, is the very gift of eternal life which he bestows upon kingdom believers, and which even now makes certain their resurrection from the bonds of natural death.

190:0.3 (2029.3) The mortals of the realms will arise i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with the same type of transition or morontia body that Jesus had when he arose from the tomb on this Sunday morning. These bodies do not have circulating blood, and such beings do not partake of ordinary material food; nevertheless, these morontia forms are *real*. When the various believers saw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they really saw him; they were not

아-기만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은, 초기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지파에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옥,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복음 선생들 모두가 주(主)의 부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연합되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主)의 부활을 전파함에 있어서 취하였던 탁월한 역할을 조망해 볼 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변인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여자 대원들의 대변인이었음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마리아는 여자 일꾼들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석 교사였고 대중을 위한 대변자였다. 마리아는 이미 매우 신중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보여준 대담성은 빈 무덤을 발견하였을 때 그녀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대 여인이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잠시 동안 잊도록 한 것은, 그녀의 사랑에서의 깊이와 고뇌, 그녀의 헌신에서의 충만함이었다.

제 1 장. 부활의 소식

사도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죽음에 대한 그의 모든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의 강요와 그리고 그들 자신 스스로의 체험에서의 절대적 증명과 마주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와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다섯 여인들의 보고를 사도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고, 다른 여인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의 딸과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믿었다. 6시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를 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딸과 4명의 여인들은 니고데모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 동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그곳에 모여 있는 요셉, 니고데모, 다윗 세베대,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하였고,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요셉과 다윗은 그 보고를 믿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무덤을 조사하기 위하여 급히 서둘러 나갔으며, 그들은 여인들이 설명한 대로 모든 것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묘실을 열어다 본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을 7시 30 분경에 무덤에 보내어 수의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지휘관은 모든 것들을 세마포 형겔에 싸서 근처에 있는 절벽 너머로 던져버렸다.

the self-deceived victims of visions or hallucinations.

190:0.4 (2029.4) Abiding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the cardinal feature of the faith of all branches of the early gospel teaching. In Jerusalem, Alexandria, Antioch, and Philadelphia all the gospel teachers united in this implicit faith in the Master's resurrection.

190:0.5 (2029.5) In viewing the prominent part which Mary Magdalene took in proclaiming the Master's resurrection, it should be recorded that Mary was the chief spokesman for the women's corps, as was Peter for the apostles. Mary was not chief of the women workers, but she was their chief teacher and public spokesman. Mary had become a woman of great circumspection, so that her boldness in speaking to a man whom she considered to be the caretaker of Joseph's garden only indicates how horrified she was to find the tomb empty. It was the depth and agony of her love, the fullness of her devotion, that caused her to forget, for a moment, the conventional restraints of a Jewish woman's approach to a strange man.

1. HERALDS OF THE RESURRECTION

190:1.1 (2029.6) The apostles did not want Jesus to leave them; therefore had they slighted all his statements about dying, along with his promises to rise again. They were not expecting the resurrection as it came, and they refused to believe until they were confronted with the compulsion of unimpeachable evidence and the absolute proof of their own experiences.

190:1.2 (2030.1) When the apostles refused to believe the report of the five women who represented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Mary Magdalene returned to the tomb, and the others went back to Joseph's house, where they related their experiences to his daughter and the other women. And the women believed their report. Shortly after six o'clock the daughter of Joseph of Arimathea and the four women who had seen Jesus went over to the home of Nicodemus, where they related all these happenings to Joseph, Nicodemus, David Zebedee, and the other men there assembled. Nicodemus and the others doubted their story, doubt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conjectured that the Jews had removed the body. Joseph and David were disposed to believe the report, so much so that they hurried out to inspect the tomb, and they found everything just as the women had described. And they were the last to so view the sepulchre, for the high priest sent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s to the tomb at half past seven o'clock to remove the grave cloths. The captain wrapped them all up in the linen sheet and threw

무덤에서 다윗과 요셉은 바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곳의 다락방에서 열 명의 사도들과 회합을 가졌다.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비록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요한 세베대만이 믿으려고 하였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주(主)를 만나지 못하자, 심각한 의심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믿으려 하였다.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사도들이니 이 일들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룰 생각은 없지만; 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메신저들을 모이도록 지시해 놓은 니고데모의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이면, 주(主)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마지막 임무를 맡길 작정입니다. 나는 주(主)께서 그가 죽은 다음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왕국 대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아-임명한 통신과 정보의 우두머리는 사도들과 헤어졌다. 다락방에서 나가던 그는 사도들의 자금 전부가 들어있는 유다의 돈주머니를 마태 레위의 무릎에 내려놓았다.

26명에 달하는 다윗의 메신저들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니고데모의 집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경이었다. 다윗은 넓은 안마당에 즉시 그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게 그리고 서로에게 했던 맹세에 따라서, 지금까지 당신들은 나에게 봉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손 안에 거졌던 정보를 들려 보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당신들이 증언해 줄 것을 청합니다. 나는 이제 왕국의 메신저 자원자로서의, 당신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임무를 띄워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당신의 맹세에서 해제하며 이것으로서 메신저 무리단을 해산합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우리 일을 완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주(主)는 필사자 메신저가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들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무덤을 보았는데—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대화를 나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네 명의 여인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해산하고, 작별을 고했으면서, 당신들의 해당 임무로서 당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자들에게 품고 갈 마지막 소식은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났고; 그 무덤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때 그들은 메신저들에 대한 것을 단념시키려 애썼지만, 그들은 의문스러운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them over a near-by cliff.

190:1.3 (2030.2) From the tomb David and Joseph went immediately to the home of Elijah Mark, where they held a conference with the ten apostles in the upper chamber. Only John Zebedee was disposed to believe, even faintly,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Peter had believed at first but, when he failed to find the Master, fell into grave doubting. They were all disposed to believe that the Jews had removed the body. David would not argue with them, but when he left, he said: “You are the apostles, and you ought to understand these things. I will not contend with you; nevertheless, I now go back to the home of Nicodemus, where I have appointed with the messengers to assemble this morning, and when they have gathered together, I will send them forth on their last mission, as heralds of the Master’s resurrection. I heard the Master say that, after he should die, he would rise on the third day, and I believe him.” And thus speaking to the dejected and forlorn ambassadors of the kingdom, this self-appointed chief of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took leave of the apostles. On his way from the upper chamber he dropped the bag of Judas, containing all the apostolic funds, in the lap of Matthew Levi.

190:1.4 (2030.3) It was about half past nine o’clock when the last of David’s twenty-six messengers arrived at the home of Nicodemus. David promptly assembled them in the spacious courtyard and addressed them:

190:1.5 (2030.4) “Men and brethren, all this time you have served me in accordance with your oath to me and to one another, and I call you to witness that I have never yet sent out false information at your hands. I am about to send you on your last mission as volunteer messengers of the kingdom, and in so doing I release you from your oaths and thereby disband the messenger corps. Men, I declare to you that we have finished our work. No more does the Master have need of mortal messengers; he has risen from the dead. He told us before they arrested him that he would die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I have seen the tomb — it is empty. I have talked with Mary Magdalene and four other women, who have talked with Jesus. I now disband you, bid you farewell, and send you on your respective assignments, and the message which you shall bear to the believers is: ‘Jesus has risen from the dead; the tomb is empty.’”

190:1.6 (2030.5) The majority of those present endeavored to persuade David not to do this. But they could not influence him. They then sought to dissuade the messengers, but they would not heed the words of doubt. And so, shortly before

일요일 아침 10시 조금 전에, 26명의 이 소식 전달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막강한 진리의 사실을 전하는 첫 전령으로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다른 것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다윗 세베대와 서로 간에 맹세를 지키면서 이 임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자신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려는 머무름도 없이 이 업무를 띄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말은 믿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믿은 그들 대부분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문을 가진 자들도, 모두 똑같이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모두 똑같이 재빠르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왕국의 영적 무리단인 사도들은 이 날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현시하였고 불신을 나타냈으나, 반면에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주(主)의 복음을 사회화시키는 일에 대한 처음 시도를 대표하는 이 평신도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없고 유능한 영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와 우주의 부활한 구원자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선택받은 대표자들은 그의 말씀을 믿거나 목격한 증거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 사건 많은 봉사에 종사하였다.

26명의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과, 남쪽으로는 비엘세바에서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신자들이 모여 있는 모든 처소들로 파견되었다.

다윗은 형제들과 헤어진 후에,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요셉의 집으로 갔으며, 그 후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갔다. 다윗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에서의 소유물들을 처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떠난 여행에 동행하였다.

이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벳세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예수의 첫 번째 남동생인 야고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루트는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베다니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나머지 가족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막내 여동생인 루트와 결혼한 후인 6월 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갔다.

제 2 장. 베다니에 나타나신 예수

모론시아 부활이 있던 때로부터, 그의 영이 높은 곳으로 상승한 시간까지,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각각 19번 출현하였다. 그의 적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식별할 수 있는 형체로서의 그의 현시활동은 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무덤에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에게 이었다; 두 번째

ten o'clock this Sunday morning, these twenty-six runners went forth as the first heralds of the mighty truth-fact of the resurrected Jesus. And they started out on this mission as they had on so many others, in fulfillment of their oath to David Zebedee and to one another. These men had great confidence in David. They departed on this assignment without even tarrying to talk with those who had seen Jesus; they took David at his word. The majority of them believed what David had told them, and even those who somewhat doubted, carried the message just as certainly and just as swiftly.

190:1.7 (2031.1) The apostles, the spiritual corps of the kingdom, are this day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where they manifest fear and express doubts, while these laymen, representing the first attempt at the socialization of the Master's gospel of the brotherhood of man, under the orders of their fearless and efficient leader, go forth to proclaim the risen Savior of a world and a universe. And they engage in this eventful service ere his chosen representatives are willing to believe his word or to accept the evidence of eyewitnesses.

190:1.8 (2031.2) These twenty-six were dispatched to the home of Lazarus in Bethany and to all of the believer centers, from Beersheba in the south to Damascus and Sidon in the north; and from Philadelphia in the east to Alexandria in the west.

190:1.9 (2031.3) When David had taken leave of his brethren, he went over to the home of Joseph for his mother, and they then went out to Bethany to join the waiting family of Jesus. David abode there in Bethany with Martha and Mary until after they had disposed of their earthly possessions, and he accompanied them on their journey to join their brother, Lazarus, at Philadelphia.

190:1.10 (2031.4) In about one week from this time John Zebedee took Mary the mother of Jesus to his home in Bethsaida. James, Jesus' eldest brother, remained with his family in Jerusalem. Ruth remained at Bethany with Lazarus's sisters. The rest of Jesus' family returned to Galilee. David Zebedee left Bethany with Martha and Mary, for Philadelphia, early in June, the day after his marriage to Ruth, Jesus' youngest sister.

2. JESUS' APPEARANCE AT BETHANY

190:2.1 (2031.5) From the time of the morontia resurrection until the hour of his spirit ascension on high, Jesus made nineteen separate appearances in visible form to his believers on earth. He did not appear to his enemies nor to those who could not make spiritual use of his manifestation in visible form. His first appearance was to the five women at the tomb; his second, to

시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

세 번째 출현은 베다니에서 이 일요일 정오 무렵에 발생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와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는 다윗의 메신저가 약 한 시간 전에 전해 준 소식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부활한 빈 무덤 앞의 나사로의 정원에 서 있었다. 야고보는 자기 만형의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항상 믿으려고 하였지만, 예수의 활동에 오랫동안 접하지 못하였으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도들의 후반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의심에 빠져 있었다. 메신저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거의 혼동되었다.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하였고, 이른 새벽 시간에 요셉의 무덤에서 가졌던 자신의 체험들을 그 가족들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녀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하였다. 당연히 루트는 이 보고를 믿었으며, 유다는 다윗과 살로메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것을 믿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야고보를 찾았으며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직 무덤에서 가까운 정원에 서 있었으며, 그는 마치 누가 자기 어깨에 손을 대는 듯한 어떤 가까운 현존을 느꼈으며; 그가 돌아볼 때, 그는 자기 옆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으며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하였다. 그러자 그 이상한 형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고보야, 나는 왕국 봉사를 위하여 너를 부르려고 왔다. 네 형제들과 진지하게 하나가 되어 나를 따라오거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은 야고보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만형,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주(主)의 모론시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일단 그들과의 교통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 중의 거의 아무도 그의 음성을 인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매력 있는 개인성을 정체성 확인하는 데에 거의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예수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본 야고보는,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형님”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거의 3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날들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는 “야고보야,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인사할 때까지 잘 있거라.”

그들이 아직도 벳바게에서 야고보를 찾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방금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였으며,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그는 내 앞에서 사라지시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씀하였다.” 그가 거의 말을 마칠 무렵에 유다가 돌아왔으며, 그는 정원에서 예수를 만났던 체험을

Mary Magdalene, also at the tomb.

190:2.2 (2031.6) The third appearance occurred about noon of this Sunday at Bethany. Shortly after noontide, Jesus' oldest brother, James, was standing in the garden of Lazarus before the empty tomb of the resurrected brother of Martha and Mary,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news brought to them about one hour previously by the messenger of David. James had always inclined to believe in his eldest brother's mission on earth, but he had long since lost contact with Jesus' work and had drifted into grave doubting regarding the later claims of the apostles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whole family was startled and well-nigh confounded by the news brought by the messenger. Even as James stood before Lazarus's empty tomb, Mary Magdalene arrived on the scene and was excitedly relating to the family her experiences of the early morning hours at the tomb of Joseph. Before she had finished, David Zebedee and his mother arrived. Ruth, of course, believed the report, and so did Jude after he had talked with David and Salome.

190:2.3 (2032.1) In the meantime, as they looked for James and before they found him, while he stood there in the garden near the tomb, he became aware of a near-by presence, as if someone had touched him on the shoulder; and when he turned to look, he beheld the gradual appearance of a strange form by his side. He was too much amazed to speak and too frightened to flee. And then the strange form spoke, saying: “James, I come to call you to the service of the kingdom. Join earnest hands with your brethren and follow after me.” When James heard his name spoken, he knew that it was his eldest brother, Jesus, who had addressed him. They all had more or less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morontia form of the Master, but few of them had any trouble recognizing his voice or otherwise identifying his charming personality when he once began to communicate with them.

190:2.4 (2032.2) When James perceived that Jesus was addressing him, he started to fall to his knees, exclaiming, “My father and my brother,” but Jesus bade him stand while he spoke with him. And they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talked for almost three minutes; talked over experiences of former days and forecast the events of the near future. As they neared the house, Jesus said, “Farewell, James, until I greet you all together.”

190:2.5 (2032.3) James rushed into the house, even while they looked for him at Bethpage, exclaiming: “I have just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visited with him. He is not dead; he has risen! He vanished before me, saying, ‘Farewell until I greet you all together.’” He had scarcely finished speaking when Jude returned, and he retold the experience of meeting Jesus in the garden for the

유다를 위하여 다시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 부활을 믿기 시작하였다. 야고보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가 흥분한 여인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다; 강심장의 남자들조차도 그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 나도 직접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두 시 바로 전에 필사자가 인식하도록 예수의 네 번째 출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며, 이 때 그는 모두 20명에 이르는 자신의 지상에서의 가족들과 그들의 친구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주(主)는 열려있는 뒷문에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한 때 육신으로 나와 가까이 지냈고 하늘의 왕국에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로서 천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할 수 있었던 말이나? 너희가 전심으로 진리의 빛을 따르기로 선택하기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었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진리의 영광의 천교로 오라.” 그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던 처음 상태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그를 끌어안으려는 듯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자, 그는 그들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그 도시로 달려가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싶어 하였으나, 야고보가 그들을 제지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야고보는 예수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가 자신에게 말씀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론시아 방문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한 주(主)와 이 날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결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제 3 장. 요셉의 집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의 다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같은 일요일 오후 4시 15분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모여 있는 약 25명의 여자 신도들 앞에서 발생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출현이 이루어지기 불과 몇 분전에 요셉의 집에 돌아왔었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주(主)가 베다니에 나타났던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에게 그녀의 자매 신도들에게도 그 사건을 보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여인들 모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예수의 가족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을 때 방금 전에 발생했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슴 두근거리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고 장엄한 고요함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 한 가운데에서, 부활한 예수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왕국의 동료관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속

benefit of Jude. And they all began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James now announced that he would not return to Galilee, and David exclaimed: “He is seen not only by excited women; even stronghearted men have begun to see him. I expect to see him myself.”

190:2.6 (2032.4) And David did not long wait, for the fourth appearance of Jesus to mortal recognition occurred shortly before two o'clock in this very home of Martha and Mary, when he appeared visibly before his earthly family and their friends, twenty in all. The Master appeared in the open back door, saying: “Peace be upon you. Greetings to those once near me in the flesh and fellowship for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kingdom of heaven. How could you doubt? Why have you lingered so long before choosing to follow the light of truth with a whole heart? Come, therefore, all of you into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of Truth in the Father’s kingdom.” As they began to recover from the first shock of their amazement and to move toward him as if to embrace hi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0:2.7 (2032.5) They all wanted to rush off to the city to tell the doubting apostles about what had happened, but James restrained them. Mary Magdalene, only, was permitted to return to Joseph’s house. James forbade their publishing abroad the fact of this morontia visit because of certain things which Jesus had said to him as they conversed in the garden. But James never revealed more of his visit with the risen Master on this day at the Lazarus home in Bethany.

3. AT THE HOME OF JOSEPH

190:3.1 (2033.1) The fif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to the recognition of mortal eyes occurred in the presence of some twenty-five women believers assembled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at about fifteen minutes past four o'clock on this same Sunday afternoon. Mary Magdalene had returned to Joseph’s house just a few minutes before this appearance. James, Jesus’ brother, had requested that nothing be said to the apostles concerning the Master’s appearance at Bethany. He had not asked Mary to refrain from reporting the occurrence to her sister believers. Accordingly, after Mary had pledged all the women to secrecy, she proceeded to relate what had so recently happened while she was with Jesus’ family at Bethany. And she was in the very midst of this thrilling recital when a sudden and solemn hush fell over them; they beheld in their very midst the fully visible form of the risen Jesus. He greeted them, saying: “Peace be upon you. In

박 받는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서 하느님의 아들관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 해방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온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부터 신자들이 신앙에 굳건히 서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일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는 땅 끝까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그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얼굴에 모습을 녹여내고 침묵 속에서 경배하는 동안,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때까지 다섯 번에 걸쳐 발생한 예수의 모로시아 출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네 번을 입증하였다.

오전 반나절이 지날 무렵에 메신저들을 파견한 결과로,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의 출현에 대한 암시들의 무의식적인 누설로 인하여,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도시에 두루 퍼졌다는 소식이 저녁 무렵에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에 심각하게 자극을 받았다. 가야바는 안나스와 급히 의논한 후에, 그 날 저녁 8시에 모이도록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였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그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 공황에 가까운 혼란 속에서 회의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과의 자신들의 실제 문제는 단지 시작이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the fellowship of the kingdom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rich nor poor, free nor bond, man nor woman. You also are called to publish the good news of the liberty of mankind through the gospel of sonship with God in the kingdom of heaven. Go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and confirming believers in the faith thereof. And while you do this, forget not to minister to the sick and strengthen those who are fainthearted and fear-ridden. And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while the women fell on their faces and worshiped in silence.

190:3.2 (2033.2) Of the five morontia appearances of Jesus occurring up to this time, Mary Magdalene had witnessed four.

190:3.3 (2033.3) As a result of sending out the messengers during the midforenoon and from the unconscious leakage of intimations concerning this appearance of Jesus at Joseph's house, word began to come to the rulers of the Jews during the early evening that it was being reported about the city that Jesus had risen, and that many persons were claiming to have seen him. The Sanhedrists were thoroughly aroused by these rumors. After a hasty consultation with Annas, Caiaphas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to convene at eight o'clock that evening. It was at this meeting that action was taken to throw out of the synagogues any person who made mention of Jesus' resurrection. It was even suggested that anyone claiming to have seen him should be put to death; this proposal, however, did not come to a vote since the meeting broke up in confusion bordering on actual panic. They had dared to think they were through with Jesus. They were about to discover that their real trouble with the man of Nazareth had just begun.

제 4 장.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나심

4시 30분쯤 되었을 때,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약 40명의 그리스인 신자들에게 주(主)가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주(主)가 부활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토론하고 있을 때, 문들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가운데에서 현시하였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왔었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너희는 모두 형제—하느님의 아들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계로 가서, 너희가 왕국의 대사들로부터 받아들였던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신앙과 진리를 소유한 아버지의 아들들의 형제신분으로 너희와 동료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신 후에 떠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4. APPEARANCE TO THE GREEKS

190:4.1 (2033.4) About half past four o'clock, at the home of one Flavius, the Master made his sixth morontia appearance to some forty Greek believers there assembled. While they were engaged in discussing the reports of the Master's resurrection, he manifested himself in their midst, notwithstanding that the doors were securely fastened, and speaking to them, said: "Peace be upon you. While the Son of Man appeared on earth among the Jews, he came to minister to all men. In the kingdom of my Father there shall be neither Jew nor gentile; you will all be brethren — the sons of God. Go you, therefore, 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of salvation as you have received it from the ambassadors of the kingdom, and I will fellowship you in the brotherhood of the Father's sons of faith and

못하였다. 그들은 저녁 내내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경외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용기를 내어 나가지 못하였다. 또한 이 그리스인들은 그 밤에 아무도 잠을 자지 못하였다; 주(主)가 다시 자기들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의논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배반할 때,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리스인들 대부분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그 도시 전체가 흥분되어 매우 심하게 동요하게 되었다. 주(主)는 이미 자기 가족들과 여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나타났으며, 또한 얼마 안 있어 사도들 가운데에도 직접 현시되고 있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통치자들에게 이토록 갑자기 밀어닥친 이 새로운 문제들을 재빨리 심사숙고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을 무척 생각하였지만, 자신이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끼리 몇 시간 동안 더 따로 떨어져서 진지한 반성과 사려 깊은 숙고를 하기를 바라셨다.

제 5 장. 두 형제들과 같이 걸어가심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에, 목동인 두 형제들이 살았는데, 유월절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 제사와 예식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였다. 형인 클레오파스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었는데; 적어도 그는 나중에 회당에서 출교 당하였다. 그의 동생 야콥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主)의 가르침과 한 일들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에 무척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 일요일 오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5시가 거의 되었을 무렵에, 이들 두 형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의 가르침들과 한 일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과 어떤 여인들이 그와 이야기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클레오파스는 이 소문들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만, 야콥은 그 모든 사건들이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의 모론시아 현시활동, 그의 일곱 번째 출현은 그들 옆으로 따라가시면서 같이 여행하였다. 클레오파스는 예수의 가르침을 종종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主)가 지금 자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는 그들과 같이 조금 걸어가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그토록 진지하게 나눈 말들이 무슨 뜻이었느냐?”라고 말씀하였다. 예수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잠시 서서 그를 보다가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클레오파스가 이렇게

truth.” And when he had thus charged them, he took leave, and they saw him no more. They remained within the house all evening; they were too much overcome with awe and fear to venture forth. Neither did any of these Greeks sleep that night; they stayed awake discussing these things and hoping that the Master might again visit them. Among this group were many of the Greeks who were at Gethsemane when the soldiers arrested Jesus and Judas betrayed him with a kiss.

190:4.2 (2034.1) Rumors of Jesus' resurrection and reports concerning the many appearances to his followers are spreading rapidly, and the whole city is being wrought up to a high pitch of excitement. Already the Master has appeared to his family, to the women, and to the Greeks, and presently he manifests himself in the midst of the apostles. The Sanhedrin is soon to begin the consideration of these new problems which have been so suddenly thrust upon the Jewish rulers. Jesus thinks much about his apostles but desires that they be left alone for a few more hours of solemn reflection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before he visits them.

5. THE WALK WITH TWO BROTHERS

190:5.1 (2034.2) At Emmaus, about seven miles west of Jerusalem, there lived two brothers, shepherds, who had spent the Passover week in Jerusalem attending upon the sacrifices, ceremonials, and feasts. Cleopas, the elder, was a partial believer in Jesus; at least he had been cast out of the synagogue. His brother, Jacob, was not a believer, although he was much intrigued by what he had heard about the Master's teachings and works.

190:5.2 (2034.3) On this Sunday afternoon, about three miles out of Jerusalem and a few minutes before five o'clock, as these two brothers trudged along the road to Emmaus, they talked in great earnestness about Jesus, his teachings, work, and more especially concerning the rumors that his tomb was empty, and that certain of the women had talked with him. Cleopas was half a mind to believe these reports, but Jacob was insistent that the whole affair was probably a fraud. While they thus argued and debated as they made their way toward home, the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his seventh appearance, came alongside them as they journeyed on. Cleopas had often heard Jesus teach and had eaten with him at the homes of Jerusalem believers on several occasions. But he did not recognize the Master even when he spoke freely with them.

190:5.3 (2034.4) After walking a short way with them, Jesus said: "What were the words you exchanged so earnestly as I came upon you?" And when Jesus had spoken, they stood still and viewed him with sad surprise. Said Cleopas: "Can it be that you sojourn in Jerusalem and know not the things

말하였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主)는 “무슨 일들이냐?”라고 물었다. 클레오파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이 일들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행위에 큰 힘이 있는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들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듣지 못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제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그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가 이방인들의 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진지 지금이 삼일 째인데, 어떤 여인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다가 그곳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였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계속 우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그리고 이 때 야곱이 자기 형의 말에 끼어들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길을 계속 갈 때, 예수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를 더디게 깨닫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토론하던 것이 그 사람의 가르침들과 한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네가 나에게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더 익숙하니, 너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다. 그 예수가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아들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의한 새로운 이 왕국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제신분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기쁨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항상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아들이 병 든 자와 고통 받는 자를 돌보시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느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 나사렛 사람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며, 자기의 적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겠지만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의 날에 관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가난한 자들의 혼을 구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나라들이 그를 찬미하리라는 것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한 해방자는 지치고 피곤한 땅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그림자처럼 되실 것이다. 그는 참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이실 것이며, 그 양들을 두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서 친절하게 데리고 다니실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충분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해방시키실 것이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빛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낙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

which have recently happened?” Then asked the Master, “What things?” Cleopas replied: “If you do not know about these matters, you are the only one in Jerusalem who has not heard these rumors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o was a prophet mighty in word and in dee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delivered him up to the Romans and demanded that they crucify him. Now many of us had hoped that it was he who would deliver Israel from the yoke of the gentiles. But that is not all. It is now the third day since he was crucified, and certain women have this day amazed us by declaring that very early this morning they went to his tomb and found it empty. And these same women insist that they talked with this man; they maintain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when the women reported this to the men, two of his apostles ran to the tomb and likewise found it empty” — and here Jacob interrupted his brother to say, “but they did not see Jesus.”

190:5.4 (2035.1) As they walked along, Jesus said to them: “How slow you are to comprehend the truth! When you tell me that it is about the teachings and work of this man that you have your discussions, then may I enlighten you since I am more than familiar with these teachings. Do you not remember that this Jesus always taught that his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and that all men, being the sons of God, should find liberty and freedom in the spiritual joy of the fellowship of the brotherhood of loving service in this new kingdom of the truth of the heavenly Father’s love? Do you not recall how this Son of Man proclaimed the salvation of God for all men, ministering to the sick and afflicted and setting free those who were bound by fear and enslaved by evil? Do you not know that this man of Nazareth told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be delivered up to his enemies, who would put him to death, and that he would arise on the third day? Have you not been told all this? And have you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concerning this day of salvation for Jew and gentile, where it says that in him shall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that he will hear the cry of the needy and save the souls of the poor who seek him; that 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 That such a Deliverer shall be as the shadow of a great rock in a weary land. That he will feed the flock like a true shepherd, gathering the lambs in his arms and tenderly carrying them in his bosom. That he will open the eyes of the spiritually blind and bring the prisoners of despair out into full liberty and light; that all who sit in darkness shall see the great light of eternal salvation. That he will bind up the brokenhearted,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of sin, and open up the prison to those who are enslaved by fear and

하며, 공포에 노예가 되고 악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픔과 비애 대신에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수여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 되실 것이며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속하는 기쁨이 되실 것이다. 이 진리와 정의(正義)의 아들은 구원의 힘과 치유의 빛과 함께 세상에 우뚝 솟아나실 것이다; 자기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것이다; 잃었던 자들을 실제로 찾아서 구하실 것이다. 그는 연약한 자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며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육체에게 자기 영을 부어 주실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각 신자들 속에 영속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희에게 전해 준 왕국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는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때 그들은 이 형제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가까이 도착하였다. 그들이 함께 걸어오는 동안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로 두 형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곧 두 형제가 살고 있는 초라한 집 앞에 도착하였고, 예수는 그들과 헤어져서, 가던 길을 계속 내려가시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함께 들어가 묵으시도록 억지로 그에게 권유하였다. 그들은 밤이 가까웠으므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예수는 마침내 허락하였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즉시 같이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그가 축복을 빌어 줄 수 있도록 그에게 빵을 드렸으며, 그가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눈을 뜨고, 클레오파스는 자기들의 손님이 바로 그 주(主) 자신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이 분이 주(主)이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모론시아 예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서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동안, 우리 가슴이 속에서 불타는 듯했던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하여 멈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론시아 주(主)를 보았으며, 부활한 구원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집에서 달려 나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날 저녁 9시 경, 그리고 주(主)가 열 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기 바로 전에, 흥분한 이 두 형제는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자기들이 예수를 보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과, 빵을 떼기까지 어떻게 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들이 식별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bound by evil. That he will comfort those who mourn and bestow upon them the joy of salvation in the place of sorrow and heaviness. That he shall be the desire of all nations and the everlasting joy of those who seek righteousness. That this Son of truth and righteousness shall rise upon the world with healing light and saving power; even that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at he will really seek and save those who are lost. That he will not destroy the weak but minister salvation to all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That he will pour out his spirit upon all flesh, and that this Spirit of Truth shall be in each believer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Did you not understand how great was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this man delivered to you? Do you not perceive how great a salvation has come upon you?”

190:5.5 (2035.2) By this time they had come near to the village where these brothers dwelt. Not a word had these two men spoken since Jesus began to teach them as they walked along the way. Soon they drew up in front of their humble dwelling place, and Jesus was about to take leave of them, going on down the road, but they constrained him to come in and abide with them. They insisted that it was near nightfall, and that he tarry with them. Finally Jesus consented, and very soon after they went into the house, they sat down to eat. They gave him the bread to bless, and as he began to break and hand to them, their eyes were opened, and Cleopas recognized that their guest was the Master himself. And when he said, “It is the Master —,” the morontia Jesus vanished from their sight.

190:5.6 (2036.1) And then they said, the one to the other, “No wonder our hearts burned within us as he spoke to us while we walked along the road! and while he opened up to our understanding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190:5.7 (2036.2) They would not stop to eat. They had seen the morontia Master, and they rushed from the house, hastening back to Jerusalem to spread the good news of the risen Savior.

190:5.8 (2036.3) About nine o'clock that evening and just before the Master appeared to the ten, these two excited brothers broke in upon the apostles in the upper chamber, declaring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alked with him. And they told all that Jesus had said to them and how they had not discerned who he was until the time of the breaking of the bread.

제 191 편 사도와 다른 영도자들에 출현

⇨ 190

유랜시아 책

192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1 편 사도와 다른 영도자들에 출현

섹션

소개

제 1 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제 2 장.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

제 3 장. 모른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제 4 장.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제 5 장.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심

제 6 장.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PAPER 191

APPEARANCES TO THE APOSTLES
AND OTHER LEADERS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earance to Peter

2. First Appearance to the Apostles

3. With the Morontia Creatures

4. The Tenth Appearance (At Philadelphia)

5. Second Appearance to the Apostles

6. The Alexandrian Appearance

소개

부활의 일요일이 사도들의 삶에는 무척 고통스러운 하루였으며; 10 명의 사도들은 그 날 하루 대부분을 그 다락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로 지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갔다가 발견되어 산헤드린의 앞잡이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도마는 혼자서 그의 걱정으로 벳바게에서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며, 그들의 논의에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가 이미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관념을 하루 종일 떠받쳐주고 있었다. 그가 주(主)께서 자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경우가 적어도 5번 이상, 그리고 셋째 날이라고 암시한 경우도 적어도 3번 이상 있었다는 것을 차례로 열거하였다. 요한의 태도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별히 그의 형제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그러하였다. 요한이 그 무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았았어도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들의 고립이 그들의 어려움과 많은 관계가 있었다. 요한 마가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계속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성 안에서

INTRODUCTION

191:0.1 (2037.1) RESURRECTION Sunday was a terrible day in the lives of the apostles; ten of them spent the larger part of the day in the upper chamber behind barred doors. They might have fled from Jerusalem, but they were afraid of being arrested by the agents of the Sanhedrin if they were found abroad. Thomas was brooding over his troubles alone at Bethpage. He would have fared better had he remained with his fellow apostles, and he would have aided them to direct their discussions along more helpful lines.

191:0.2 (2037.2) All day long John upheld the idea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He recounted no less than five different times when the Master had affirmed he would rise again and at least three times when he alluded to the third day. John's attitude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m, especially on his brother James and on Nathaniel. John would have influenced them more if he had not been the youngest member of the group.

191:0.3 (2037.3) Their isolation had much to do with their troubles. John Mark kept them in touch with developments about the temple and informed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소문들을 전해주었으나, 예수가 이미 나타났던 다른 신자 무리들로부터는 소식을 전해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메신저들로부터 친절한 봉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무리들에게 전하는 임무에 배속을 받았으므로 그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도들은 지난 여러 해 중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왕국의 관련사들에 대한 일일 정보에 대하여, 다윗의 메신저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해 왔었는지 깨달았다.

베드로는 본래의 특징적으로, 주(主)의 부활에 대하여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이 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시신이 중팔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수의가 무덤 안에 남아있던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살아나셨고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인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사도들 가운데 그의 현존으로 자기들에게 오시지 않는 이유가, 그 날 밤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그를 부인한 그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는 그 여인들이 전해 준 “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으로부터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主)를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마당으로 나간 8시 조금 후까지, 그 날 하루 종일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였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가 오시지 못하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야고보 세베대는 처음에 모두 무덤으로 가 보자고 주장하였다; 그 신비스러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대중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린 것은 나다니엘이었으며, 그는 이와 같은 때에 쓸데없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정오 무렵에 야고보는 안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예수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무척 실망하였고, 주(主)가 개별존제들과 무리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안드레는 이 날 거의 듣기만 하였다. 그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무척 당황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어떤 자유로운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중압을 수 없는 상황이 자기들에게 임하기 전에, 자신의 영도자관계로서의 짐을 주(主)가 털어주신 것에 대하여, 그는 정말로 고마워하였다.

비극적인 이 날 지루하고 지친 시간들 동안

them as to the many rumors gaining headway in the city, but it did not occur to him to gather up news from the different groups of believers to whom Jesus had already appeared. That was the kind of service which had heretofore been rendered by the messengers of David, but they were all absent on their last assignment as heralds of the resurrection to those groups of believers who dwelt remote from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all these years the apostles realized how much they had been dependent on David's messengers for their daily information regarding the affairs of the kingdom.

191:0.4 (2037.4) All this day Peter characteristically vacillated emotionally between faith and doubt concerning the Master's resurrection. Peter could not get away from the sight of the grave cloths resting there in the tomb as if the body of Jesus had just evaporated from within. “But,” reasoned Peter, “if he has risen and can show himself to the women, why does he not show himself to us, his apostles?” Peter would grow sorrowful when he thought that maybe Jesus did not come to them on account of his presence among the apostles, because he had denied him that night in Annas's courtyard. And then would he cheer himself with the word brought by the women, “Go tell my apostles — and Peter.” But to derive encouragement from this message implied that he must believe that the women had really seen and heard the risen Master. Thus Peter alternated between faith and doubt throughout the whole day, until a little after eight o'clock, when he ventured out into the courtyard. Peter thought to remove himself from among the apostles so that he might not prevent Jesus' coming to them because of his denial of the Master.

191:0.5 (2037.5) James Zebedee at first advocated that they all go to the tomb; he was strongly in favor of doing someth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e mystery. It was Nathaniel who prevented them from going out in public in response to James's urging, and he did this by reminding them of Jesus' warning against unduly jeopardizing their lives at this time. By noontime James had settled down with the others to watchful waiting. He said little; he was tremendously disappointed because Jesus did not appear to them, and he did not know of the Master's many appearances to other groups and individuals.

191:0.6 (2038.1) Andrew did much listening this day. He was exceedingly perplexed by the situation and had more than his share of doubts, but he at least enjoyed a certain sense of freedom from responsibility for the guidance of his fellow apostles. He was indeed grateful that the Master had released him from the burdens of leadership before they fell upon these distracting times.

191:0.7 (2038.2) More than once during the long and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무리들에게 유일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켜준 것은, 나다니엘이 자주 제시한 그의 특징적인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실제로 그 날 하루 종일 열 명의 사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주(主)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다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지 하는, 자기의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였음을 믿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갔다.

시몬 켈로페는 너무 낙심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방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벽을 향하고 누워 있었다; 하루 종일 여섯 번 정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왕국에 대한 그의 개념은 무너졌으며, 주(主)의 부활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빨리 회복될 수 없었으며,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록하기는 이상하지만, 어느 때 말이 없던 빌립이 이 날 오후 내내 많은 말을 하였다. 오전 동안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후에는 줄곧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을 종종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질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그의 몸에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흔적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특별히 알고 싶어 하였다.

마태는 매우 혼동이 되었다; 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자신들의 재정 문제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예정된 부활을 개의치 않고, 유다는 떠나 버렸으며, 다윗은 아무 절차도 없이 자금을 자기에게 넘겼고, 자기들에게는 이제 아무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 마태는 부활에 관한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에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주(主)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다.

알페오 쌍둥이는 이러한 심각한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습관적인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主)와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하였다는 데, 우리는 어머니를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도마는 자포자기하는 우울증이라는 그의 전형적인 주문증의 하나에 걸려 빠져있었다. 그는 잠을 잔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산들을 거닐면서 보냈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다시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였다.

주(主)께서 사도들에 대한 첫 번째 모론티아

weary hours of this tragic day, the only sustaining influence of the group was the frequent contribution of Nathaniel's characteristic philosophic counsel. He was really the controlling influence among the ten throughout the entire day. Never once did he express himself concerning either belief or disbelief in the Master's resurrection. But as the day wore on, he became increasingly inclined toward believing that Jesus had fulfilled his promise to rise again.

191:0.8 (2038.3) Simon Zelotes was too much crushed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Most of the time he reclined on a couch in a corner of the room with his face to the wall; he did not speak half a dozen times throughout the whole day. His concept of the kingdom had crashed, and he could not discern that the Master's resurrection could materially change the situation. His disappointment was very personal and altogether too keen to be recovered from on short notice, even in the face of such a stupendous fact as the resurrection.

191:0.9 (2038.4) Strange to record, the usually inexpressive Philip did much talking throughout the afternoon of this day. During the forenoon he had little to say, but all afternoon he asked questions of the other apostles. Peter was often annoyed by Philip's questions, but the others took his inquiries good-naturedly. Philip was particularly desirous of knowing, provided Jesus had really risen from the grave, whether his body would bear the physical marks of the crucifixion.

191:0.10 (2038.5) Matthew was highly confused; he listened to the discussions of his fellows but spent most of the time turning over in his mind the problem of their future finances. Regardless of Jesus' supposed resurrection, Judas was gone, David had unceremoniously turned the funds over to him, and they were without an authoritative leader. Before Matthew got around to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their arguments about the resurrection, he had already seen the Master face to face.

191:0.11 (2038.6) The Alpheus twins took little part in these serious discussions; they were fairly busy with their customary ministrations. One of them expressed the attitude of both when he said, in reply to a question asked by Philip: "We do not understand about the resurrection, but our mother says she talked with the Master, and we believe her."

191:0.12 (2038.7) Thomas was in the midst of one of his typical spells of despairing depression. He slept a portion of the day and walked over the hills the rest of the time. He felt the urge to rejoin his fellow apostles, but the desire to be by himself was the stronger.

191:0.13 (2038.8) The Master put off the first morontia

출현을 미루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아직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자 하였다. 주(主)는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현시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려움들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라셨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 요한 마가는 그 일요일 이른 아침, 11시 경에 도마가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그렇다는 말을 사도들에게 전하였다. 나다니엘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두 사도들이 그에게 갔었다면, 도마는 이 날 언제든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전 날 저녁에 떠날 때 취한 자기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였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진하여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도 무척 우울하였으므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하였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반면에 그는 사도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서 같이 돌아가자고 청해 주기만을 바랬다. 그리하여 도마는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어둠이 깔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벳바게로 와서 자신을 데리고 연관-동료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에 그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도마 없이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제 1 장.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예수가 마가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일요일 저녁 8시 30분경이었다. 이것은 그의 여덟 번째 모론티아 현시활동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主)를 부인한 이후로 죄의식과 의심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지내왔다. 토요일과 이 일요일 내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유다의 숙명에 몸서리를 쳤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역시 주(主)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살아났다면, 자기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 날 오후 내내 하였다. 낙심한 사도가 꽃밭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기분과 혼의 상태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이었다.

그가 안나스의 현관 앞을 지나치면서 주(主)의 사랑스런 모습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빈 무덤에서 달려 온 여인들이 그 날 아침 일찍 자신에게 전해 준 엄청난 소식,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가서”라는 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가 이 자비의 상징들을 심사숙고하였을 때, 그의 신앙은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하였으며, 똑바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이렇게 소리 질렀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appearance to the apostl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he wanted them to have time, after they heard of his resurrection, to think well over what he had told them abou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hen he was still with them in the flesh. The Master wanted Peter to wrestle through with some of his peculiar difficulties before he manifested himself to them all. In the second place, he desired that Thomas should be with them at the time of his first appearance. John Mark located Thomas at the home of Simon in Bethpage early this Sunday morning, bringing word to that effect to the apostles about eleven o'clock. Any time during this day Thomas would have gone back to them if Nathaniel or any two of the other apostles had gone for him. He really wanted to return, but having left as he did the evening before, he was too proud to go back of his own accord so soon. By the next day he was so depressed that it required almost a week for him to make up his mind to return. The apostles waited for him, and he waited for his brethren to seek him out and ask him to come back to them. Thomas thus remained away from his associates until the next Saturday evening, when, after darkness had come on, Peter and John went over to Bethpage and brought him back with them. And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y did not go at once to Galilee after Jesus first appeared to them; they would not go without Thomas.

1. THE APPEARANCE TO PETER

191:1.1 (2039.1) It was near half past eight o'clock this Sunday evening when Jesus appeared to Simon Peter in the garden of the Mark home. This was his eighth morontia manifestation. Peter had lived under a heavy burden of doubt and guilt ever since his denial of the Master. All day Saturday and this Sunday he had fought the fear that, perhaps, he was no longer an apostle. He had shuddered at the fate of Judas and even thought that he, too, had betrayed his Master. All this afternoon he thought that it might be his presence with the apostles that prevented Jesus' appearing to them, provided, of course, he had really risen from the dead. And it was to Peter, in such a frame of mind and in such a state of soul, that Jesus appeared as the dejected apostle strolled among the flowers and shrubs.

191:1.2 (2039.2) When Peter thought of the loving look of the Master as he passed by on Annas's porch, and as he turned over in his mind that wonderful message brought him early that morning by the women who came from the empty tomb, "Go tell my apostles — and Peter" — as he contemplated these tokens of mercy, his faith began to surmount his doubts, and he stood still, clenching his fists, while he spoke aloud: "I believe he has risen from the dead; I will go and tell my brethren." And as he

말하였을 때, 그의 앞에 한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으며, 친숙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적이 너를 노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와서 관계를 부인하였던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므로; 네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하였지만; 이제 너는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 때의 괴로움과 네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왕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일에서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여야 한다. 시몬아 새로운 날의 전투, 사람의 본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불신들과 영적 무지와 투쟁에 대비하라.”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정원을 같이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거의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베드로야, 내가 너와 네 형제들을 같이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主)와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실현된 것과 자신이 아직도 왕국의 대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동안 잠겨 있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영광된 주(主)의 음성을 방금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가슴 속에 솟아오르면서, 동료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흥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주(主)를 보았다; 그는 정원 안에 계셨다. 그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정원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베드로의 선언은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의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일어나서 자기 동생의 말에 의해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전에 실체가 아닌 것들을 보았던 사실을 암시하였다. 주(主)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베드로가 주장하였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날 밤의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말하였던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의 암시에 무척 상처를 받았으며 즉시 풀이 죽어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쌍둥이 형제들은 베드로에게 그들의 깊은 공감을 말했으며,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들의 어머니도 역시 주(主)를 보았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고 위로하였다.

제 2 장.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

그 날 저녁 9시가 조금 지나고, 클레오파스와 야콥이 떠난 후에, 알페오 쌍둥이들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으며, 나다니엘이 안드레에게 충고

said this, there suddenly appeared in front of him the form of a man, who spoke to him in familiar tones, saying: “Peter, the enemy desired to have you, but I would not give you up. I knew it was not from the heart that you disowned me; therefore I forgave you even before you asked; but now must you cease to think about yourself and the troubles of the hour while you prepare to carry the good news of the gospel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No longer should you be concerned with what you may obtain from the kingdom but rather be exercised about what you can give to those who live in dire spiritual poverty. Gird yourself, Simon, for the battle of a new day, the struggle with spiritual darkness and the evil doubtings of the natural minds of men.”

191:1.3 (2039.3) Peter and the morontia Jesus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talked of things past, present, and future for almost five minutes. Then the Master vanished from his gaze, saying, “Farewell, Peter, until I see you with your brethren.”

191:1.4 (2039.4) For a moment, Peter was overcome by the realization that he had talked with the risen Master, and that he could be sure he was still an ambassador of the kingdom. He had just heard the glorified Master exhort him to go on preaching the gospel. And with all this welling up within his heart, he rushed to the upper chamber and into the presence of his fellow apostles, exclaiming in breathless excitement: “I have seen the Master; he was in the garden. I talked with him, and he has forgiven me.”

191:1.5 (2040.1) Peter's declaration that he had seen Jesus in the garden made a profound impression upon his fellow apostles, and they were about ready to surrender their doubts when Andrew got up and warned them not to be too much influenced by his brother's report. Andrew intimated that Peter had seen things which were not real before. Although Andrew did not directly allude to the vision of the night on the Sea of Galilee wherein Peter claimed to have seen the Master coming to them walking on the water, he said enough to betray to all present that he had this incident in mind. Simon Peter was very much hurt by his brother's insinuations and immediately lapsed into crestfallen silence. The twins felt very sorry for Peter, and they both went over to express their sympathy and to say that they believed him and to reassert that their own mother had also seen the Master.

2. FIRST APPEARANCE TO THE APOSTLES

191:2.1 (2040.2) Shortly after nine o'clock that evening, after the departure of Cleopas and Jacob, while the Alpheus twins comforted Peter, and while

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 명의 사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붙잡혀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모론시아 형체의 주(主)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내가 나타났을 때, 너희가 마치 혼을 본 듯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제들과 통치자들이 나를 죽도록 인계하리라는 것과, 바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이유로 너희 모두는 그 여인들과 클레오파스와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쟁하며 의심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의심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실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않다. 너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느님을 믿고; 서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무를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모론시아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느님께 찬양하였으며 사라진 주(主)를 경배하였다. 이것은 주(主)의 아홉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제 3 장.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다음 날인 월요일, 그 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다. 주(主)가 모론시아-전환을 체험할 때, 백만이 넘는 모론시아 감독들과 연관-동료들이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세계들로부터 다양한 계층 속에 있는 전환기의 필사자들과 함께 유란시아에 와 있었다. 모론시아 예수는 이 훌륭한 지능존재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감독들로부터는 거주민이 사는 사타니아 세계들의 필사자들이 모론시아 구체들의 체계를 통과하는 것과 같이 모론시아 전환의 일생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主)의 모론시아 형체는 모론시아 진보의 두 번째 단계로 전환되기 위하여 조절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필사자 자녀들에게 다음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 이었다. 모론시아 생애에 있어서 주(主)가 진보해 가함에 따라, 필사자의 그리고 물질적인 눈에 주(主)를 가시화(可視化)시키는 일이, 모론시아의 지능존재들과 변환을 담당할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예수는 4월 14일 금요일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고; 네 번째 단계는 17일 월요일에; 다섯 번

Nathaniel remonstrated with Andrew, and as the ten apostles were there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with all the doors bolted for fear of arrest, the Master, in morontia form, suddenly appeared in the midst of them, saying: “Peace be upon you. Why are you so frightened when I appear, as though you had seen a spirit? Did I not tell you about these things when I was present with you in the flesh? Did I not say to you that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would deliver me up to be killed, that one of your own number would betray me, and that on the third day I would rise? Wherefore all your doubtings and all this discussion about the reports of the women, Cleopas and Jacob, and even Peter? How long will you doubt my words and refuse to believe my promises? And now that you actually see me, will you believe? Even now one of you is absent. When you are gathered together once more, and after all of you know of a certainty that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grave, go hence into Galilee.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one another; and so shall you enter into the new service of the kingdom of heaven. I will tarry in Jerusalem with you until you are ready to go into Galilee. My peace I leave with you.”

191:2.2 (2040.3) When the morontia Jesus had spoken to them, he vanished in an instant from their sight. And they all fell on their faces, praising God and venerating their vanished Master. This was the Master's ninth morontia appearance.

3. WITH THE MORONTIA CREATURES

191:3.1 (2040.4) The next day, Monday, was spent wholly with the morontia creatures then present on Urantia. As participants in the Master's morontia-transition experience, there had come to Urantia more than one million morontia directors and associates, together with transition mortals of various orders from the seven mansion worlds of Satania. The morontia Jesus sojourned with these splendid intelligences for forty days. He instructed them and learned from their directors the life of morontia transition as it is traversed by the mortals of the inhabited worlds of Satania as they pass through the system morontia spheres.

191:3.2 (2041.1) About midnight of this Monday the Master's morontia form was adjusted for transition to the second stage of morontia progression. When he next appeared to his mortal children on earth, it was as a second-stage morontia being. As the Master progressed in the morontia career, it became, technically,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morontia intelligences and their transforming associates to visualize the Master to mortal and material eyes.

191:3.3 (2041.2) Jesus made the transit to the third stage of morontia on Friday, April 14; to the fourth

째 단계는 22일 토요일에; 여섯 번째 단계는 27일 목요일에; 일곱 번째 단계는 5월 2일 화요일에; 7일 일요일에는 예루셈 시민의 단계로; 14일 일요일에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포옹에 들어가셨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증여들과 연결되어, 별자리의 본부들에 머무르는 단계로부터, 초우주의 본부들에 대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충만한 일생을 이미 체험하였으므로, 이 방법으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우주 체험에서의 자신의 봉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은 그의 일곱 번째이며 마지막인 우주 증여를 실제로 끝내시고 만족스럽게 완결하신 것은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들에 의해서였다.

제 4 장.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필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님의 열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은 4월 11일 화요일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에서 아브너와 나사로 그리고 70인의 전도 대원들 중 50명 이상이 포함된 약 150명에 이르는 그들의 연관-동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최근에 다윗의 메신저가 전해 준 부활에 대한 보다 최근의 소식에 대해 토의하기 위하여, 아브너에 의해 소집되었던 회당에서의 특별 회의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이 출현이 발생하였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 신자들이 무리의 일원(一員)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고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회당에서의 회의가, 같이 단상(壇上)에 서있는데, 아브너와 나사로에 의해 막 시작되었는데, 그때 객석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주(主)의 형체를 보았다. 아브너와 나사로 사이에서 처음 나타났으므로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걸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의 왕국 복음—사람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가 그 복음에 충성하는 것에 기쁨을 향유하고 있듯이, 그렇게, 형제들을 위하는 새롭고도 더욱 큰 사랑이 너희 가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도록 해달라고 진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

stage on Monday, the 17th; to the fifth stage on Saturday, the 22nd; to the sixth stage on Thursday, the 27th; to the seventh stage on Tuesday, May 2; to Jerusalem citizenship on Sunday, the 7th; and he entered the embrace of the Most Highs of Edentia on Sunday, the 14th.

191:3.4 (2041.3) In this manner did Michael of Nebadon complete his service of universe experience since he had already, in connection with his previous bestowals, experienced to the full the life of the ascendant mortals of time and space from the sojourn on the headquarters of the constellation even on to, and through, the service of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And it was by these very morontia experiences that the Creator Son of Nebadon really finished and acceptably terminated his seventh and final universe bestowal.

4. THE TENTH APPEARANCE (AT PHILADELPHIA)

191:4.1 (2041.4) The t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to mortal recognition occurred a short time after eight o'clock on Tuesday, April 11, at Philadelphia, where he showed himself to Abner and Lazarus and some one hundred and fifty of their associates, including more than fifty of the evangelistic corps of the seventy. This appearance occurred just after the opening of a special meeting in the synagogue which had been called by Abner to discuss the crucifixion of Jesus and the more recent report of the resurrection which had been brought by David's messenger. Inasmuch as the resurrected Lazarus was now a member of this group of believers, it was not difficult for them to believe the report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191:4.2 (2041.5) The meeting in the synagogue was just being opened by Abner and Lazarus, who were standing together in the pulpit, when the entire audience of believers saw the form of the Master appear suddenly. He stepped forward from where he had appeared between Abner and Lazarus, neither of whom had observed him, and saluting the company, said:

191:4.3 (2041.6) “Peace be upon you. You all know that we have one Father in heaven, and that there is but one gospel of the kingdom — the good news of the gift of eternal life which men receive by faith. As you rejoice in your loyalty to the gospel, pray the Father of truth to shed abroad in your hearts a new and greater love for your brethren. You are to love all men as I have loved you; you are to serve all men as I have served you. With understanding sympathy and brotherly affection, fellowship all your brethren who are dedica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news, whether they be

든지, 페르시아인 이든지 에티오피아인이든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너희 모든 형제들과 남독하는 동정심과 형제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사귀라. 요한은 앞서서 왕국을 선포하였고; 너희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해오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영적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깨우침에 그처럼 사심-없이 삶을 바치는 모든 내 형제들의 혼속에 진리의 영을 곧 보내 줄 것이다. 너희들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필사자의 의심과 인간의 편협성으로 오해하는 장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만일 너희가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사랑하도록 고상해졌다면, 널리 퍼지는 신앙의 가족 안에서 믿음의 동료인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대로,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서로 형제이고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이 복음을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에게 전파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종족들과 민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지혜롭게 하라.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모든 나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거저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악한 세력의 저항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가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각각의 경우에 그를 본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동시에 그를 보았던, 갈릴리에서의 출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라델피아에서의 이 무리들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도들은 도마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이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하며 나아갔다.

다음날인 수요일에, 예수는 자신의 모론시아 동행자들과 함께 줄곧 같이 보내졌으며, 오후 반나절 동안에는 놀라시아텍의 별자리 전체에서 거주민이 사는 구체들의 각 지역 체계의 맨션세계들로부터 방문한 모론시아 대표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창조자를 자신들의 우주 지능 계층의 하나로서 알게 된 기쁨을 향유하였다.

제 5 장.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심

도마는 올리브 산 근처의 동산들 속에서 혼자 고독한 한 주일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요한 마가만을 만났다. 두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집합 장소인 마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것은 4월 15일 토요일 9시 경이었다. 도마는 다음 날 주(主)께서 여러 번 나타났

Jew or gentile, Greek or Roman, Persian or Ethiopian. John proclaimed the kingdom in advance; you have preached the gospel in power; the Greeks already teach the good news; and I am soon to send forth the Spirit of Truth into the souls of all these, my brethren, who have so unselfishly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enlightenment of their fellows who sit in spiritual darkness. You are all the children of light; therefore stumble not into the misunderstanding entanglements of mortal suspicion and human intolerance. If you are ennobled, by the grace of faith, to love unbelievers, should you not also equally love those who are your fellow believers in the far-spreading household of faith? Remember, as you love one another,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191:4.4 (2042.1) “Go, then, into all the world proclaiming this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to all nations and races and ever be wise in your choice of methods for presenting the good news to the different races and tribes of mankind. Freely you have received this gospel of the kingdom, and you will freely give the good news to all nations. Fear not the resistance of evil, for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191:4.5 (2042.2) When he had said, “My peace I leave with you,”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With the exception of one of his appearances in Galilee, where upward of five hundred believers saw him at one time, this group in Philadelphia embraced the largest number of mortals who saw him on any single occasion.

191:4.6 (2042.3) Early the next morning, even while the apostles tarried in Jerusalem awaiting the emotional recovery of Thomas, these believers at Philadelphia went forth proclaiming that Jesus of Nazareth had risen from the dead.

191:4.7 (2042.4) The next day, Wednesday, Jesus spent without interruption in the society of his morontia associates, and during the midafternoon hours he received visiting morontia delegates from the mansion worlds of every local system of inhabited spheres throughout the constellation of Norlatiadek. And they all rejoiced to know their Creator as one of their own order of universe intelligence.

5. SECOND APPEARANCE TO THE APOSTLES

191:5.1 (2042.5) Thomas spent a lonesome week alone with himself in the hills around about Olivet. During this time he saw only those at Simon's house and John Mark. It was about nine o'clock on Saturday, April 15, when the two apostles found him and took him back with them to their

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치 그들이 주(主)를 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하였지만, 소용 없었다. 그의 습관적인 깊은 의심과 연관된 감정적인 고집이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마음 상태에 덧붙여서, 그들로부터 도망쳐 버렸던 자신에 대한 분함이 있었고, 도마 자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연관-동료들로부터 떠나, 혼자 가버렸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돌아와 같이 있지만, 그는 무의식중에 불일치하는 태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양보하기를 싫어하였다. 일부터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남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실제로 좋아하였다; 모든 연관-동료들이 자기를 설득하고 생각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무의식적인 만족을 얻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 주일 내내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

그들은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도마의 한쪽 옆에는 베드로가 앉고 다른 쪽에는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는데, 의심 많은 그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主)를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문들이 견고하게 닫혀있고, 그들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른시아 주(主)가 식탁 모서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로 도마 앞으로 가서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에게 있으라. 너희들 모두 모여 있을 때 내가 다시 나타나서, 온 세계로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임무를 하달하려고, 내가 일주일 내내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는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되,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낸다. 너희는 다만 하늘의 기쁨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물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성한 생명의 영적 실체들도 보여주어야 한다. 너희가 신앙을 소유하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 힘,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곳 잠겨 있는 문들 뒤에서 너희의 빛을 숨기지 말라: 너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인류에게 알려라.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체험의 사실들로부터 피하고 있지만, 너희가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왕국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새로운 체험을 위하여 용감하고 기쁘게 나아가라. 너희는 전통주의의 권위에 의한 거짓된 보호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체험의 최극 실체들 속에 있는 사실들과 진리 그리고 신앙의 권위에 의한 새로운 계층으로 옮겨가는 충격

rendezvous at the Mark home. The next day Thomas listened to the telling of the stories of the Master's various appearances, but he steadfastly refused to believe. He maintained that Peter had entused them into thinking they had seen the Master. Nathaniel reasoned with him, but it did no good. There was an emotional stubbornness associated with his customary doubtfulness, and this state of mind, coupled with his chagrin at having run away from them, conspired to create a situation of isolation which even Thomas himself did not fully understand. He had withdrawn from his fellows, he had gone his own way, and now, even when he was back among them, he unconsciously tended to assume an attitude of disagreement. He was slow to surrender; he disliked to give in. Without intending it, he really enjoyed the attention paid him; he derived unconscious satisfaction from the efforts of all his fellows to convince and convert him. He had missed them for a full week, and he obtained considerable pleasure from their persistent attentions.

191:5.2 (2042:6) They were having their evening meal a little after six o'clock, with Peter sitting on one side of Thomas and Nathaniel on the other, when the doubting apostle said: "I will not believe unless I see the Master with my own eyes and put my finger in the mark of the nails." As they thus sat at supper, and while the doors were securely shut and barred, the morontia Master suddenly appeared inside the curvature of the table and, standing directly in front of Thomas, said:

191:5.3 (2043:1) "Peace be upon you. For a full week have I tarried that I might appear again when you were all present to hear once more the commission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is gospel of the kingdom. Again I tell you: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send I you. As I have revealed the Father, so shall you reveal the divine love, not merely with words, but in your daily living. I send you forth, not to love the souls of men, but rather to love men. You are not merely to proclaim the joys of heaven but also to exhibit in your daily experience these spirit realities of the divine life since you already have eternal life, as the gift of God, through faith. When you have faith, when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of Truth, has come upon you, you will not hide your light here behind closed doors; you will make known the love and the mercy of God to all mankind. Through fear you now flee from the facts of a disagreeable experience, but when you shall have been baptized with the Spirit of Truth, you will bravely and joyously go forth to meet the new experiences of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in the kingdom of God. You may tarry here and in Galilee for a short season while you recover from the shock of the transition from the false security of the authority of traditionalism to the new order of

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곳과 갈릴리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들 속에서 하느님을-게시하는 일생을 살았다는 그 사실 위에;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될 일생 속에서—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체험—이루어질 것이다. 신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취게 하라; 진리의 계시가, 전통으로 인하여 멀어 있는 눈을 뜨게 하라; 너희의 사랑으로 하는 봉사가, 무지로 인하여 발생된 선입관을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게 하라. 깊이 납득하는 동정심과 사심-없는 헌신으로 너희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너희는 아버지 사랑의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유대인들은 선(善)을 찬양한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美)을 칭송한다; 힌두인들은 헌신을 강조한다; 먼 옛날의 금욕주의자들은 존경을 가르쳤다; 로마인들은 충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들에게 일생, 육신으로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일생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마친 주(主)는 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못 자국 속에 네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 도마야, 이제는 내가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도 임할 그 형체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가 못 자국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네 형제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토록 완강하게 믿지 않을 때에도 이미 네 가슴 속으로는 네가 믿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네 의심들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항상 아주 완강하게 버티려고 한다. 도마야, 나는 너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권한다.—그리고 나는 네가 전심으로 믿을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모론시아 주(主)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믿습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主)시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도마야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필사자의 귀로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나서 주(主)의 형제는 식탁 윗자리 쪽으로 가서서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 모두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은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열 한 사도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제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그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the authority of facts, truth, and faith in the supreme realities of living experience. Your mission to the world is founded on the fact that I lived a God-revealing life among you; on the truth that you and all other men are the sons of God; and it shall consist in the life which you will live among men — the actual and living experience of loving men and serving them, even as I have loved and served you. Let faith reveal your light to the world; let the revelation of truth open the eyes blinded by tradition; let your loving service effectually destroy the prejudice engendered by ignorance. By so drawing close to your fellow men in understanding sympathy and with unselfish devotion, you will lead them into a saving knowledge of the Father's love. The Jews have extolled goodness; the Greeks have exalted beauty; the Hindus preach devotion; the faraway ascetics teach reverence; the Romans demand loyalty; but I require of my disciples life, even a life of loving service for your brothers in the flesh.”

191:5.4 (2043.2) When the Master had so spoken, he looked down into the face of Thomas and said: “And you, Thomas, who said you would not believe unless you could see me and put your finger in the nail marks of my hands, have now beheld me and heard my words; and though you see no nail marks on my hands, since I am raised in the form that you also shall have when you depart from this world, what will you say to your brethren? You will acknowledge the truth, for already in your heart you had begun to believe even when you so stoutly asserted your unbelief. Your doubts, Thomas, always most stubbornly assert themselves just as they are about to crumble. Thomas, I bid you be not faithless but believing — and I know you will believe, even with a whole heart.”

191:5.5 (2043.3) When Thomas heard these words, he fell on his knees before the morontia Master and exclaimed, “I believe! My Lord and my Master!” Then said Jesus to Thomas: “You have believed, Thomas, because you have really seen and heard me. Blessed are those in the ages to come who will believe even though they have not seen with the eye of flesh nor heard with the mortal ear.”

191:5.6 (2043.4) And then, as the Master's form moved over near the head of the table, he addressed them all, saying: “And now go all of you to Galilee, where I will presently appear to you.” After he said this,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1:5.7 (2044.1) The eleven apostles were now fully convinc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and very early the next morning, before the break of day, they started out for Galilee.

제 6 장.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난 열 한 명의 사도들이, 여행 목적지에 거의 도착되었을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오후 8시 30분 경,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을 비롯하여 80 여명의 다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主)가 모론시아 형태로 나타나신 12번째 사건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메신저가 십자가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칠 때에 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 이 메신저는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를 연계식으로 달리는 메신저들 중에서 다섯 번째 사람이었으며, 그 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였고, 그가 소식을 로단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 메신저로부터 이 비극적인 말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자들을 모두 소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8시쯤 되어서, 부시리스의 나단이라는 이 메신저는 무리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 앞사람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나단은 그의 감동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한 다윗은 주(主)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였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확인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단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모론시아 주(主)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단이 자리에 앉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세우시려는 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특정한 무리의 선생들이나 설교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로운 자나 속박 받는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으로 사는 그 삶들을 통하여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도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하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의 왕국의 신앙의 친구들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하여, 너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모두는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 이 왕국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단지 사제들의 역할에만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내가 시대들이 끝나는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主)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 신자들은 그 날 밤 내내 그곳에 함께 남아서, 왕국을 믿는 자들로서의 체험들을

6. THE ALEXANDRIAN APPEARANCE

191:6.1 (2044.2) While the eleven apostles were on the way to Galilee, drawing near their journey's end, on Tuesday evening, April 18, at about half past eight o'clock, Jesus appeared to Rodan and some eighty other believers, in Alexandria. This was the Master's twelfth appearance in morontia form. Jesus appeared before these Greeks and Jews at the conclusion of the report of David's messenger regarding the crucifixion. This messenger, being the fifth in the Jerusalem-Alexandria relay of runners, had arrived in Alexandria late that afternoon, and when he had delivered his message to Rodan, it was decided to call the believers together to receive this tragic word from the messenger himself. At about eight o'clock, the messenger, Nathan of Busiris, came before this group and told them in detail all that had been told him by the preceding runner. Nathan ended his touching recital with these words: "But David, who sends us this word, reports that the Master, in foretelling his death, declared that he would rise again." Even as Nathan spoke, the morontia Master appeared there in full view of all. And when Nathan sat down, Jesus said:

191:6.2 (2044.3) "Peace be upon you. That which my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to establish belongs not to a race, a nation, nor to a special group of teachers or preachers. This gospel of the kingdom belongs to both Jew and gentile, to rich and poor, to free and bond, to male and female, even to the little children. And you are all to proclaim this gospel of love and truth by the lives which you live in the flesh. You shall love one another with a new and startling affection, even as I have loved you. You will serve mankind with a new and amazing devotion, even as I have served you. And when men see you so love them, and when they behold how fervently you serve them, they will perceive that you have become faith-fellow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they will follow after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y see in your lives, to the finding of eternal salvation.

191:6.3 (2044.4)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is world, even so now send I you. You are all called to carry the good news to those who sit in darkness. This gospel of the kingdom belongs to all who believe it; it shall not be committed to the custody of mere priests. Soon will the Spirit of Truth come upon you, and he shall lead you into all truth. Go you, therefore,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s."

191:6.4 (2044.5) When the Master had so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All that night these believers remained there together recounting their

서로 이야기하였고, 로단과 그의 연관-동료들의 많은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 이 날로부터 이들이 지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전령이 자신이 전해 준 소식에 대하여 그들이 “예, 우리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저께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experiences as kingdom believers and listening to the many words of Rodan and his associates. And they all believed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Imagine the surprise of David's herald of the resurrection, who arrived the second day after this, when they replied to his announcement, saying: "Yes, we know, for we have seen him. He appeared to us day before yesterday."

제 192 편 갈릴리에서의 출현

⇨ 191

유랜시아 책

193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2 편 갈릴리에서의 출현

색션

소개

제 1 장. 호수 옆에서 나타나심

제 2 장. 사도들 두 사람씩과 이야기하심

제 3 장. 사도 임명의 산에서

제 4 장. 호숫가에 모임

PAPER 192

APPEARANCES IN GALILEE

SECTIONS

Introduction

1. Appearance by the Lake

2. Visiting with the Apostles Two and Two

3. On the Mount of Ordination

4. The Lakeside Gathering

소개

사도들이 갈릴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유대인 영도자들은 아무 반응 없이 침묵을 지켰다. 예수가 오직 왕국을 믿는 그의 가족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 있었고 대중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통치자들은 복음 운동이 결국 효과적으로 박멸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당황하기는 하였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를, 뇌물을 받은 경비병들이 퍼뜨림으로써, 그러한 모든 소문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때부터, 박해의 물결이 밀어닥침으로써 사도들이 흩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사도 대원들의 우두머리로 인지되었다. 예수는 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었으며, 그의 동료 사도들도 공식적으로 그를 그러한 책임 있는 위치에 선출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이의 없이, 그리고 그가 우두머리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고수하였다. 이때부터 대중 설교는 사도들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대신 선택한 마티아가 그들의 회계원이 되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던 그 주간 동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 신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

INTRODUCTION

^{192:0.1 (2045.1)} BY THE time the apostles left Jerusalem for Galilee, the Jewish leaders had quieted down considerably. Since Jesus appeared only to his family of kingdom believers, and since the apostles were in hiding and did no public preaching, the rulers of the Jews concluded that the gospel movement was, after all, effectually crushed. They were, of course, disconcerted by the increasing spread of rumors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but they depended upon the bribed guards effectively to counteract all such reports by their reiteration of the story that a band of his followers had removed the body.

^{192:0.2 (2045.2)} From this time on, until the apostles were dispersed by the rising tide of persecution, Peter was the generally recognized head of the apostolic corps. Jesus never gave him any such authority, and his fellow apostles never formally elected him to such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he naturally assumed it and held it by common consent and also because he was their chief preacher. From now on public preaching became the main business of the apostles. After their return from Galilee, Matthias, whom they chose to take the place of Judas, became their treasurer.

^{192:0.3 (2045.3)} During the week they tarried in Jerusalem, Mary the mother of Jesus spent much of the time with the women believers who were

간을 보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사도들이 갈릴리로 떠날 때, 요한 마가도 뒤 따라 갔다. 그는 도시를 빠져나갈 때까지 뒤를 따라 가다가, 베다니를 훨씬 지나간 후에는, 그들이 자기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리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대담하게 그들과 섞여서 걸어갔다.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주(主)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러 번 쉬었기 때문에, 수요일 아주 늦은 밤에서야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두 잠이 깨어, 아침 식사를 나눌 준비를 한 것은 목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제 1 장. 호수 옆에서 나타나심

4월 21일 금요일 아침 6시 경에, 벳세다에서 배를 대어두던 해변에, 열 명의 사도들이 탄 배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모른시아 주(主)가 13번째로 나타났으며, 갈릴리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베대의 집에서 사도들이 대기하면서 목요일 오후와 초저녁을 보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하였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제안하였을 때, 사도들 모두가 동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체험들,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근에 자기들에게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벳세다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해변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변에 배를 대어 두는 곳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모닥불 옆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요한 마가일 것이며,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해변에 가까이 가면서, 자기들이 실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요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키가 컸다. 해변에 있는 그 사람이 주(主)이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었다. 공포와 배반과 죽음에 비극적으로 관계적-연합된 예루살렘의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들과 초기에 함께 하였던 그 현장 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야외에서 주(主)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였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닻을 내리고, 물가로 나가기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해변에서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여보시오, 무엇을 좀 잡았소?”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한 마음이 되어 지도 받은 대로 그물을 던졌으며, 즉시 그물이 가득 차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 때 요한 세베대는 고기가

stopping at the home of Joseph of Arimathea.

^{192:0.4 (2045.4)} Early this Monday morning when the apostles departed for Galilee, John Mark went along. He followed them out of the city, and when they had passed well beyond Bethany, he boldly came up among them, feeling confident they would not send him back.

^{192:0.5 (2045.5)} The apostles paused several times on the way to Galilee to tell the story of their risen Master and therefore did not arrive at Bethsaida until very late on Wednesday night. It was noontime on Thursday before they were all awake and ready to partake of breakfast.

1. APPEARANCE BY THE LAKE

^{192:1.1 (2045.6)} About six o'clock Friday morning, April 21, the morontia Master made his thirteenth appearance, the first in Galilee, to the ten apostles as their boat drew near the shore close to the usual landing place at Bethsaida.

^{192:1.2 (2045.7)} After the apostles had spent the afternoon and early evening of Thursday in waiting at the Zebedee home, Simon Peter suggested that they go fishing. When Peter proposed the fishing trip, all of the apostles decided to go along. All night they toiled with the nets but caught no fish. They did not much mind the failure to make a catch, for they had many interesting experiences to talk over, things which had so recently happened to them at Jerusalem. But when daylight came, they decided to return to Bethsaida. As they neared the shore, they saw someone on the beach, near the boat landing, standing by a fire. At first they thought it was John Mark, who had come down to welcome them back with their catch, but as they drew nearer the shore, they saw they were mistaken — the man was too tall for John. It had occurred to none of them that the person on the shore was the Master. They did not altogether understand why Jesus wanted to meet with them amidst the scenes of their earlier associations and out in the open in contact with nature, far away from the shut-in environment of Jerusalem with its tragic associations of fear, betrayal, and death. He had told them that, if they would go into Galilee, he would meet them there, and he was about to fulfill that promise.

^{192:1.3 (2046.1)} As they dropped anchor and prepared to enter the small boat for going ashore, the man on the beach called to them, “Lads, have you caught anything?” And when they answered, “No,” he spoke again. “Cast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fish.” While they did not know it was Jesus who had directed them, with one accord they cast in the net as they had been instructed, and immediately it was filled, so much so that they were hardly able to draw it up. Now,

많이 들어있는 그물을 보는 순간 언뜻 생각이 나서, 자기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주(主)이신 것을 알아차렸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그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서 “저분이 주(主)입니다.”라고 속삭였다. 베드로는 항상 경솔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요한이 자기 귀에 속삭인 이 말을 듣자, 주(主) 옆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형제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를 타고 그의 뒤를 쫓아서 해변으로 나왔다.

이 때 요한 마가가 일어나,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오고 있는 사도들을 보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해변으로 달려갔으며; 그는 10 사람이 아니라 11 사람이 해변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활한 예수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며, 열 명의 사도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있을 때, 그 소년은 주(主)께로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주(主)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인사할 때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였던 것과는 달리, 요한 마가에게 평상시와 똑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래, 요한아, 너를 다시 만나서 반가우며, 우리가 편안히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갈릴리에 있게 되어 기쁘다. 요한아, 우리와 함께 남아서 아침을 먹도록 해라.”

예수가 소년에게 말하는 동안, 열 명의 사도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라. 이미 모닥불과 많은 빵이 준비되어 있다.”

요한 마가가 주(主)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베드로는 해변에 숯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주(主)를 부인하였던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한 밤중에 타오르던 그 숯불이 생생하게 기억났으나,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주(主)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주(主)여!”라고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동료들과 합세하였다. 그들이 잡은 고기를 땅에 풀어놓고 세어 보았을 때 큰 고기만 153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물고기를 잡은 또 다른 기적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다시 저질렀다. 이 에피소드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주(主)가 선행지식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뿐이었다. 그는 물고기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으며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물을 그곳에 던지라고 지도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제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 형제들도 여기 앉아 있어라; 요한 마가가 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요한 마가는 알맞은 크기의 생선 일곱 마리를 가져왔고, 주(主)가 그것들을 불 위에 올려놓았으

John Zebedee was quick of perception, and when he saw the heavy-laden net, he perceived that it was the Master who had spoken to them. When this thought came into his mind, he leaned over and whispered to Peter, “It is the Master.” Peter was ever a man of thoughtless action and impetuous devotion; so when John whispered this in his ear, he quickly arose and cast himself into the water that he might the sooner reach the Master’s side. His brethren came up close behind him, having come ashore in the small boat, hauling the net of fishes after them.

192:1.4 (2046.2) By this time John Mark was up and, seeing the apostles coming ashore with the heavy-laden net, ran down the beach to greet them; and when he saw eleven men instead of ten, he surmised that the unrecognized one was the risen Jesus, and as the astonished ten stood by in silence, the youth rushed up to the Master and, kneeling at his feet, said, “My Lord and my Master.” And then Jesus spoke, not as he had in Jerusalem, when he greeted them with “Peace be upon you,” but in commonplace tones he addressed John Mark: “Well, John, I am glad to see you again and in carefree Galilee, where we can have a good visit. Stay with us, John, and have breakfast.”

192:1.5 (2046.3) As Jesus talked with the young man, the ten were so astonished and surprised that they neglected to haul the net of fish in upon the beach. Now spoke Jesus: “Bring in your fish and prepare some for breakfast. Already we have the fire and much bread.”

192:1.6 (2046.4) While John Mark had paid homage to the Master, Peter had for a moment been shocked at the sight of the coals of fire glowing there on the beach; the scene reminded him so vividly of the midnight fire of charcoal in the courtyard of Annas, where he had disowned the Master, but he shook himself and, kneeling at the Master’s feet, exclaimed, “My Lord and my Master!”

192:1.7 (2046.5) Peter then joined his comrades as they hauled in the net. When they had landed their catch, they counted the fish, and there were 153 large ones. And again was the mistake made of calling this another miraculous catch of fish. There was no miracle connected with this episode. It was merely an exercise of the Master’s preknowledge. He knew the fish were there and accordingly directed the apostles where to cast the net.

192:1.8 (2047.1) Jesus spoke to them, saying: “Come now, all of you, to breakfast. Even the twins should sit down while I visit with you; John Mark will dress the fish.” John Mark brought seven good-sized fish, which the Master put on the fire, and when they were cooked, the lad served them to the ten. Then Jesus broke the bread and handed it to

며, 잘 익은 후에, 그 소년이 그것들을 열 명의 사도들에게 배분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빵을 떼어 요한에게 주었고, 그는 시장한 사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었다. 그들이 음식을 모두 받은 후에, 예수는 요한 마가에게 앉으라고 지시하고 그 소년에게 손수 물고기와 빵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는 그들과 이야기하였으며 바로 이 호수 주변과 갈릴리에서 가졌던 자기들의 많은 체험들을 회상하였다.

이것은 사도들 전체에게 자신을 현시하신 세 번째 경우였다. 예수가 처음에 그들에게 아무 고기든지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바닷가로 나올 때, 다리키아의 어물상(魚物商)들이 햇빛에 말릴 싱싱한 고기를 직접 구입하려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체험을 늘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열 명의 사도들과 요한 마가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두 명씩 나누어 같이 이야기하며 해변을 거니셨다—그러나 처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내보내어 가르치게 하였을 때와 동일한 사람들끼리 짝을 짓게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에는 열 한 사도들이 함께 왔지만, 시몬 젤로페는 갈릴리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낙담하여, 벡세다에 도착한 후에는 형제들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예수는 이 날 아침 그들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자진하여 두 사람이 시몬 젤로페에게 가서 그 날 당장 그를 데리고 돌아오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하였다.

제 2 장. 사도들 두 사람씩과 이야기하심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을 손짓으로 부르시고 그를 따라 함께 해변을 거닐자고 하였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요한이 “예, 주(主)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주(主)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아, 그렇다면, 참지 못하는 네 성격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에 네 일생을 바쳐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찾아나서라고 재촉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선(善)의 원조(元祖)이며, 참되고(眞) 아름다운(美) 것의 본질요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John, who in turn served it to the hungry apostles. When they had all been served, Jesus bade John Mark sit down while he himself served the fish and the bread to the lad. And as they ate, Jesus visited with them and recounted their many experiences in Galilee and by this very lake.

192:1.9 (2047.2) This was the third time Jesus had manifested himself to the apostles as a group. When Jesus first addressed them, asking if they had any fish, they did not suspect who he was because it was a common experience for these fishermen on the Sea of Galilee, when they came ashore, to be thus accosted by the fish merchants of Tarichea, who were usually on hand to buy the fresh catches for the drying establishments.

192:1.10 (2047.3) Jesus visited with the ten apostles and John Mark for more than an hour, and then he walked up and down the beach, talking with them two and two — but not the same couples he had at first sent out together to teach. All eleven of the apostles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together, but Simon Zelotes grew more and more despondent as they drew near Galilee, so that, when they reached Bethsaida, he forsook his brethren and returned to his home.

192:1.11 (2047.4) Before taking leave of them this morning, Jesus directed that two of the apostles should volunteer to go to Simon Zelotes and bring him back that very day. And Peter and Andrew did so.

2. VISITING WITH THE APOSTLES TWO AND TWO

192:2.1 (2047.5) 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and while the others sat by the fire, Jesus beckoned to Peter and to John that they should come with him for a stroll on the beach. As they walked along, Jesus said to John, “John, do you love me?” And when John answered, “Yes, Master, with all my heart,” the Master said: “Then, John, give up your intolerance and learn to love men as I have loved you. Devote your life to proving that love is the greatest thing in the world. It is the love of God that impels men to seek salvation. Love is the ancestor of all spiritual goodness, the essence of the true and the beautiful.”

192:2.2 (2047.6) Jesus then turned toward Peter and asked, “Peter, do you love me?” Peter answered, “Lord, you know I love you with all my soul.” Then said Jesus: “If you love me, Peter, feed my lambs. Do not neglect to minister to the weak, the poor,

면, 내 양을 먹여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린 자들에게의 사명활동에 게을리 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편애하지 말고 복음을 전도하라: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는 네 동료들을 섬기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을 용서해라. 체험이 너에게 명상의 가치와 지적 반영의 힘을 가르치도록 만들라.”

조금 더 걸어난 후에, 주(主)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실제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시몬은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내 양을 잘 보살피라. 양 무리들에게 선하고 참된 목자가 되어라. 너에 대한 그들의 신임을 배반하지 마라. 불시에 허를 찔려 적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말라. 항상 경계하라—살피고 또한 기도하라.”

몇 발자국 더 걸어난 후에, 예수는 베드로를 보시며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그를 믿지 못하는 듯한 주(主)의 태도에 약간 슬퍼하면서, 적지 않은 감정으로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양을 먹여라. 그 무리를 버리지 마라. 너의 모든 동료 목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양 무리를 사랑하고, 네 번영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 너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자신이 그를 계속하여 따라가야만 한다는—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께 “만일 제가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잘못 납득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베드로야, 네 형제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만일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두루 퍼졌고, 왕국이 영광과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희망한 것처럼, 주(主)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가 말한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시몬 켈로페로 하여금 봉사도 돌아오게 하여, 그를 계속 일하도록 만든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었다.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조금 걸어난 후에 예수가 안드레에게 “안드레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다. 사도들의 전임 우두머리였던 그는 예수가 그러한 질문을 하자 똑바로 서서 “예, 주(主)여, 저는 결단코 당신을 신뢰하며, 제가 그러하다는 것을 당신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

and the young. Preach the gospel without fear or favor; remember always tha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Serve your fellow men even as I have served you; forgive your fellow mortals even as I have forgiven you. Let experience teach you the value of meditation and the power of intelligent reflection.”

192:2.3 (2047.7) After they had walked along a little farther, the Master turned to Peter and asked, “Peter, do you really love me?” And then said Simon,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again said Jesus: “Then take good care of my sheep. Be a good and a true shepherd to the flock. Betray not their confidence in you. Be not taken by surprise at the enemy’s hand. Be on guard at all times — watch and pray.”

192:2.4 (2047.8) When they had gone a few steps farther, Jesus turned to Peter and, for the third time, asked, “Peter, do you truly love me?” And then Peter, being slightly grieved at the Master’s seeming distrust of him, said with considerable feeling, “Lord, you know all things, and therefore do you know that I really and truly love you.” Then said Jesus: “Feed my sheep. Do not forsake the flock. Be an example and an inspiration to all your fellow shepherds. Love the flock as I have loved you and devote yourself to their welfare even as I have devoted my life to your welfare. And follow after me even to the end.”

192:2.5 (2048.1) Peter took this last statement literally — that he should continue to follow after him — and turning to Jesus, he pointed to John, asking, “If I follow on after you, what shall this man do?” And then, perceiving that Peter had misunderstood his words, Jesus said: “Peter, be not concerned about what your brethren shall do. If I will that John should tarry after you are gone, even until I come back, what is that to you? Only make sure that you follow me.”

192:2.6 (2048.2) This remark spread among the brethren and was received as a statement by Jesus to the effect that John would not die before the Master returned, as many thought and hoped, to establish the kingdom in power and glory. It was this interpretation of what Jesus said that had much to do with getting Simon Zelotes back into service, and keeping him at work.

192:2.7 (2048.3) When they returned to the others, Jesus went for a walk and talk with Andrew and James. When they had gone a short distance, Jesus said to Andrew, “Andrew, do you trust me?” And when the former chief of the apostles heard Jesus ask such a question, he stood still and answered, “Yes, Master, of a certainty I trust you, and you know that I do.” Then said Jesus: “Andrew, if you trust me, trust your brethren more

숨하였다: “안드레아,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을—베드로까지도— 더욱 신뢰하여라. 나는 한 때 형제들에 대한 너의 지도력을 신뢰하였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너를 떠나지만, 너는 다른 형제들을 신뢰해야만 한다. 처참한 박해로 인하여 네 형제들이 멀리 흩어지게 된 후에, 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감당하기에는 체험으로 분별화되지 않은 그러한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이 그에게 지우면, 그에게 숙고하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 주어라. 그리고 그런 후에 신뢰하는 것을 계속하라,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두루 거치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야고보를 향하여 “야고보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예, 주(主)여,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야고보야, 만일 네가 나를 더욱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에 대해서 좀더 참을성을 가지거라.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것이 네가 믿는 형제들에게 친절하도록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말들과 행동들의 결과들을 심사숙고하는 것을 배워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라. 영의 평온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여라. 희생물의 잔을 마셔야 하는 시간이 도래할 때,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이 은혜들이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당황하지 말라; 네가 이 땅을 지나면,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 다음에 도마와 나다니엘과 이야기하였다.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도마는 “예, 주님, 저는 지금 그리고 항상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섬겨왔던 것처럼, 육신의 내 형제들을 섬기어라. 그리고 이처럼 좋게 잘하는-행동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말고, 하느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봉사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끈기 있게 건디어 내거라. 네가 이 땅에서의 나와 함께 하는 봉사를 완결하게 되면, 영광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섬기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기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너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어린이 이처럼 하느님을 믿으라, 그러나 그렇게 어린이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만두라. 용기를 가지라; 신앙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막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나서 주(主)는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아,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예, 주(主)여, 온전한 애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만일 네가 온전한 가슴으로 나를 섬긴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헌신해야 함을 명심해라. 네가 조언을 할 때 우정과 함께 하고, 네 철학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을 섬겨라. 내가 너를 돌보아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실하여라. 비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기대(期待)하는 정도를 낮춤으로써, 너의 실망을 줄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곳에서의

— even Peter. I once trusted you with the leadership of your brethren. Now must you trust others as I leave you to go to the Father. When your brethren begin to scatter abroad because of bitter persecutions, be a considerate and wise counselor to James my brother in the flesh when they put heavy burdens upon him which he is not qualified by experience to bear. And then go on trusting, for I will not fail you. When you are through on earth, you shall come to me.”

192:2.8 (2048.4) Then Jesus turned to James, asking, “James, do you trust me?” And of course James replied, “Yes, Master, I trust you with all my heart.” Then said Jesus: “James, if you trust me more, you will be less impatient with your brethren. If you will trust me, it will help you to be kind to the brotherhood of believers. Learn to weigh the consequences of your sayings and your doings. Remember that the reap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sowing. Pray for tranquillity of spirit and cultivate patience. These graces, with living faith, shall sustain you when the hour comes to drink the cup of sacrifice. But never be dismayed; when you are through on earth, you shall also come to be with me.”

192:2.9 (2048.5) Jesus next talked with Thomas and Nathaniel. Said he to Thomas, “Thomas, do you serve me?” Thomas replied, “Yes, Lord, I serve you now and always.” Then said Jesus: “If you would serve me, serve my brethren in the flesh even as I have served you. And be not weary in this well-doing but persevere as one who has been ordained by God for this service of love. When you have finished your service with me on earth, you shall serve with me in glory. Thomas, you must cease doubting; you must grow in faith and the knowledge of truth. Believe in God like a child but cease to act so childishly. Have courage; be strong in faith and mighty in the kingdom of God.”

192:2.10 (2049.1) Then said the Master to Nathaniel, “Nathaniel, do you serve me?” And the apostle answered, “Yes, Master, and with an undivided affection.” Then said Jesus: “If, therefore, you serve me with a whole heart, make sure that you are devoted to the welfare of my brethren on earth with tireless affection. Admix friendship with your counsel and add love to your philosophy. Serve your fellow men even as I have served you. Be faithful to men as I have watched over you. Be less critical; expect less of some men and thereby lessen the extent of your disappointment. And when the work down here is over, you shall serve

일을 마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저 높은 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主)는 마태와 빌립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였다. 빌립은 “예, 주님, 당신이 제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라. 선지자들이 너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아는 왕국의 아들이 되었다. 순종해야 할 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그것은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진리의 빛에 굶주리고 흑암 속에서 번민하는 네 동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쁜 소식을 대담하게 전하라. 빌립아, 너는 더 이상 돈과 재물을 위하여 바쁘게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네 형제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쁜 소식을 자유롭게 전파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앞에서 갈 것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에게 말하면서 “마태야, 너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물었다. 마태는 “예,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충만하게 봉헌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主)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태야, 만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이 왕국 복음을 가르쳐라. 너는 더 이상 네 형제들의 일생에서의 물질적인 사물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너도 영적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여라. 지금부터는 오직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같이, 너도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네 형제라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하늘의 왕국 복음이라는 구원의 진리들을 전파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알페오 쌍둥이, 야고보와 유다에게로 가셨으며, 두 사람에게 “야고보와 유다야, 너희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이 “예, 주(主)여,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런 형체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었고-너희는 내 사도들이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나와 같이 행동하기 전에 너희가 하였던 일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희의 충성심을 좌우할 만한 어떤 기회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너희가 신앙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정직한 일들이 신성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느님의 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하잘것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일을 할 때

with me on high.”

192:2.11 (2049.2) After this the Master talked with Matthew and Philip. To Philip he said, “Philip, do you obey me?” Philip answered, “Yes, Lord, I will obey you even with my life.” Then said Jesus: “If you would obey me, go then into the lands of the gentiles and proclaim this gospel. The prophets have told you that to obey is better than to sacrifice. By faith have you become a God-knowing kingdom son. There is but one law to obey — that is the command to go forth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Cease to fear men; be unafraid to preach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to your fellows who languish in darkness and hunger for the light of truth. No more, Philip, shall you busy yourself with money and goods. You now are free to preach the glad tidings just as are your brethren. And I will go before you and be with you even to the end.”

192:2.12 (2049.3) And then, speaking to Matthew, the Master asked, “Matthew, do you have it in your heart to obey me?” Matthew answered, “Yes, Lord, I am fully dedicated to doing your will.” Then said the Master: “Matthew, if you would obey me, go forth to teach all peoples this gospel of the kingdom. No longer will you serve your brethren the material things of life; henceforth you are also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spiritual salvation. From now on have an eye single only to obeying your commission to preach this gospel of the Father’s kingdom. As I have done the Father’s will on earth, so shall you fulfill the divine commission. Remember, both Jew and gentile are your brethren. Fear no man when you proclaim the saving truths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ere I go, you shall presently come.”

192:2.13 (2049.4) Then he walked and talked with the Alpheus twins, James and Judas, and speaking to both of them, he asked, “James and Judas, do you believe in me?” And when they both answered, “Yes, Master, we do believe,” he said: “I will soon leave you. You see that I have already left you in the flesh. I tarry only a short time in this form before I go to my Father. You believe in me — you are my apostles, and you always will be. Go on believing and remembering your association with me, when I am gone, and after you have, perchance, returned to the work you used to do before you came to live with me. Never allow a change in your outward work to influence your allegiance. Have faith in God to the end of your days on earth. Never forget that, when you are a faith son of God, all upright work of the realm is sacred. Nothing which a son of God does can be common. Do your work, therefore, from this time on, as for God. And when you are through on this world, I have other and better worlds where you

하느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나에게서는 너희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더 좋은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서, 나는 너희와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가 알페오 쌍둥이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신 것은 거의 10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으며, 그는 사도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를 사도로 임명하였던 산에서 내일 정오에 너희 모두를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라고 말씀하였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제 3 장. 사도 임명의 산에서

4월 22일 토요일 정오에, 열 한 사도들은 약속대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동산 위에 모였으며, 예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번의 만남은 주(主)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왕국의 대사로서 그가 그들을 지정하였던 바로 그 산 위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主)의 14 번째 모론시아 현시활동였다.

이 때 열 한 사도들은 주(主) 주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었으며, 그가 유시들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고 왕국의 특별 임무를 위하여 처음 지정되었을 때처럼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주(主)의 기도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예전에 봉헌의 기억과 동일하였다. 주(主)께서—모론시아 예수— 기도할 때, 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음성은 장엄하였으며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주(主)는 그 자신의 우주 안에서 모든 힘과 권한을 손에 쥐신 분으로서 우주들의 통치자들과 의논하였다. 그리고 이 열 한 명의 사도들은 대사 직분의 이전의 서약에 대한 모론시아 재(再)-봉헌의 이 체험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주(主)는 자기 대사들과 함께 이 산 위에서 한 시간 동안 함께 계셨으며, 그들에게 자애로운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그 후로 한 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실제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주(主)가 이미 아버지 계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들은 벳세다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였다. 이 일 주일 내내,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론시아 창조체들과 함께 계셨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모론시아 과도기의 관련사에 몰두하였다.

제 4 장. 호숫가에 모임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shall likewise work for me. And in all of this work, on this world and on other worlds, I will work with you, and my spirit shall dwell within you.”

192:2.14 (2049.5) It was almost ten o'clock when Jesus returned from his visit with the Alpheus twins, and as he left the apostles, he said: "Farewell, until I meet you all on the mount of your ordination tomorrow at noontime." When he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3. ON THE MOUNT OF ORDINATION

192:3.1 (2050.1) At noon on Saturday, April 22, the eleven apostles assembled by appointment on the hill near Capernaum, and Jesus appeared among them. This meeting occurred on the very mount where the Master had set them apart as his apostles and as ambassadors of the Father's kingdom on earth. And this was the Master's four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192:3.2 (2050.2) At this time the eleven apostles knelt in a circle about the Master and heard him repeat the charges and saw him re-enact the ordination scene even as when they were first set apart for the special work of the kingdom. And all of this was to them as a memory of their former consecration to the Father's service, except the Master's prayer. When the Master — the morontia Jesus — now prayed, it was in tones of majesty and with words of power such as the apostles had never before heard. Their Master now spoke with the rulers of the universes as one who, in his own universe, had had all power and authority committed to his hand. And these eleven men never forgot this experience of the morontia rededication to the former pledges of ambassadorship. The Master spent just one hour on this mount with his ambassadors, and when he had taken an affectionate farewell of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192:3.3 (2050.3) And no one saw Jesus for a full week. The apostles really had no idea what to do, not knowing whether the Master had gone to the Father. In this state of uncertainty they tarried at Bethsaida. They were afraid to go fishing lest he come to visit them and they miss seeing him. During this entire week Jesus was occupied with the morontia creatures on earth and with the affairs of the morontia transition which he was experiencing on this world.

4. THE LAKESIDE GATHERING

192:4.1 (2050.4) Word of the appearances of Jesus

에 퍼졌고, 매일같이 더 많은 신자들이 주(主)의 부활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보였다는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베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 주초에, 베드로는 공개 집회가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그 바닷가에서 있을 것이라고 공표 하였다.

따라서, 4월 29일 토요일 3시에, 부활 이후 처음 있는 베드로의 대중 설교를 듣기 위하여 50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가버나움 근방으로부터 뱃세대로 모였다. 사도는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의 호소하는 강연이 다 끝난 후에는, 주(主)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청중은 거의 없었다.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을 단언한다;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음을 공포한다.” 그가 신념에 찬 이 선언을 마쳤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主)께서 그의 옆에 모른시아 형태로 나타났으며, 낮익은 어투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오라. 그리고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가 15번째로 나타난 모른시아 현시활동였다.

사도임명 받은 그 산 위에서 열 한 사도들이 주(主)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들었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은 주(主)께서 갈릴리의 무리들 앞에서 곧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리라는 것과 그가 그렇게 한 후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 날인 4월 30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열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뱃세대를 떠났다. 그들은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설교하였으므로, 5월 3일 수요일 늦은 시각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하였다.

요한 마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슬픈 귀향길 이었다.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아버지 엘리야 마가가 뇌출혈로 인하여 갑자기 죽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슬픔을 많이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훌륭한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애도하였다. 요한 마가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였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도록 그들을 청하였다. 그리고 열 한 명의 사도들은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 이 다락방을 그들의 본부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해가 진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또한 그들은 엘리야 마가를 장사 지내

was spreading throughout Galilee, and every day increasing numbers of believers arrived at the Zebedee home to inquire about the Master's resurrection and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se reputed appearances. Peter, early in the week, sent out word that a public meeting would be held by the seaside the next Sabbath at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192:4.2 (2050.5) Accordingly, on Saturday, April 29, at three o'clock, more than five hundred believers from the environs of Capernaum assembled at Bethsaida to hear Peter preach his first public sermon since the resurrection. The apostle was at his best, and after he had finished his appealing discourse, few of his hearers doubted that the Master had risen from the dead.

192:4.3 (2050.6) Peter ended his sermon, saying: "We affirm that Jesus of Nazareth is not dead; we declare that he has risen from the tomb; we proclaim that we have seen him and talked with him." Just as he finished making this declaration of faith, there by his side, in full view of all these people, the Master appeared in morontia form and, speaking to them in familiar accents, said, "Peace be upon you,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When he had thus appeared and had so spoken to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This was the fif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the risen Jesus.

192:4.4 (2051.1) Because of certain things said to the eleven while they were in conference with the Master on the mount of ordination, the apostles received the impression that their Master would presently make a public appearance before a group of the Galilean believers, and that, after he had done so, they were to return to Jerusalem. Accordingly, early the next day, Sunday, April 30, the eleven left Bethsaida for Jerusalem. They did considerable teaching and preaching on the way down the Jordan, so that they did not arrive at the home of the Marks in Jerusalem until late on Wednesday, May 3.

192:4.5 (2051.2) This was a sad home-coming for John Mark. Just a few hours before he reached home, his father, Elijah Mark, suddenly died from a hemorrhage in the brain. Although the thought of the certainty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id much to comfort the apostles in their grief, at the same time they truly mourned the loss of their good friend, who had been their staunch supporter even in the times of great trouble and disappointment. John Mark did all he could to comfort his mother and, speaking for her, invited the apostles to continue to make their home at her house. And the eleven made this upper chamber their headquarters until after the day of Pentecost.

192:4.6 (2051.3) The apostles had purposely entered Jerusalem after nightfall that they might not be seen by the Jewish authorities. Neither did they

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 많은 이 다락방에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조용히 은둔하고 있었다.

목요일 밤에 사도들은 이 다락방에서 훌륭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마와 시몬 켈로페 그리고 알페오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대중을 위한 전도에 나가서 부활한 주님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로 모두 맹세하였다. 왕국 복음—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와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포로 변경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나다니엘은 그들의 공개적인 설교 요지에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베드로의 설득력을 당할 수가 없었으며, 제자들, 특히 여자 신도들의 열광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원기 왕성한 지도력 아래에서, 그리고 주(主)가 아버지께로 미쳐 올라가기도 전에, 그의 좋은-의미를 지닌 대표자들은,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새롭고도 수정된 형태로 차츰차츰 그리고 확실하게 변경하는 미묘한 과정을 시작하였다.

publicly appear in connection with the funeral of Elijah Mark. All the next day they remained in quiet seclusion in this eventful upper chamber.

192:4.7 (2051.4) On Thursday night the apostles had a wonderful meeting in this upper chamber and all pledged themselves to go forth in the public preaching of the new gospel of the risen Lord except Thomas, Simon Zelotes, and the Alpheus twins. Already had begun the first steps of chang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 sonship with God and brotherhood with man — into the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Nathaniel opposed this shift in the burden of their public message, but he could not withstand Peter's eloquence, neither could he overcome the enthusiasm of the disciples, especially the women believers.

192:4.8 (2051.5) And so, under the vigorous leadership of Peter and ere the Master ascended to the Father, his well-meaning representatives began that subtle process of gradually and certainly changing the religion of Jesus into a new and modified form of religion *about* Jesus.

제 193 편 마지막 출현과 상승

⇨ 192

유랜시아 책

194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3 편 마지막 출현과 상승

색션

소개

제 1 장. 시카에 나타나심

제 2 장.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제 3 장.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출현

제 4 장. 유다가 패망한 이유

제 5 장. 주(主)의 상승

제 6 장. 베드로가 회의를 소집함

PAPER 193

FINAL APPEARANCES AND
ASCENSION

SECTIONS

Introduction

1. The Appearance at Sychar

2. The Phoenician Appearance

3. Last Appearance in Jerusalem

4. Causes of Judas's Downfall

5. The Master's Ascension

6. Peter Calls a Meeting

소개

예수의 16번째 모론티아 현시활동은 5월 5일 금요일, 니고데모의 집 안마당에서 밤 9시 경에 발생하였다. 이 날 저녁,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以後) 처음으로, 함께 모이고자 시도하였다. 이 때 모인 사람들은 열 한 사도들과, 여자 대원들과 그들의 친구들, 다수의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50 여명의 다른 수제자들이었다. 이 신자들 무리가 30분 이상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론티아 주(主)가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즉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내가 육신에서 해방된 후에 나타난 신자들—사도들과 제자들, 남자들과 여자들—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무리들이다.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하는 이 기간이 끝나게 되리라고 말한 것;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증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제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사제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INTRODUCTION

193:0.1 (2052.1) THE sixteenth morontia manifestation of Jesus occurred on Friday, May 5, in the courtyard of Nicodemus, about nine o'clock at night. On this evening the Jerusalem believers had made their first attempt to get together since the resurrection. Assembled here at this time were the eleven apostles, the women's corps and their associates, and about fifty other leading disciples of the Master, including a number of the Greeks. This company of believers had been visiting informally for more than half an hour when, suddenly, the morontia Master appeared in full view and immediately began to instruct them. Said Jesus:

193:0.2 (2052.2) “Peace be upon you. This is the most representative group of believers — apostles and disciples, both men and women — to which I have appeared since the time of my deliverance from the flesh. I now call you to witness that I told you beforehand that my sojourn among you must come to an end; I told you that presently I must return to the Father. And then I plainly told you how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Jews would deliver me up to be put to death, and that I would rise from the grave. Why, then, did you allow

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 너희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듣는 오류를 또 다시 하지 않도록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한명으로서 나의 체류의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나의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아는 생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게시하는 중여의 삶을 살았다. 나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임을 계시하였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임을 계시하였다.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들인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을 신앙으로써, 이 사실은 너희 가슴 속에서 영원하고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에 의해서 너희가 신성하게 하느님-의식이 되어 가면, 너희는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영에게서 태어나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주들의 우주로 상승하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성취하기까지 한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의 임무는 왕국 복음—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실체와 사람의 아들관계의 진리—을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단지 구원하는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좋은 소식의 진리 전체를 전파해라. 너희의 메시지는 나의 부활 체험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신앙으로서 하느님과 아들관계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왕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봉사를 전파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곧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들이고, 신앙을 통하여 저희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이 진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고, 나날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중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만일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 아들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신앙적으로-파악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실패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충분한 것이 못된다. 왕국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과 땅에서의 그의 자녀들의 봉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졌으며; 아버지는 그러한 힘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주신다. 내가 요셉의 새 무덤을 떠난 후 즉시로 한 시대의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상승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을-게시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 동료들에게 하느님을-게시하는 것이 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yourselves to become so disconcerted by all this when it came to pass? and why were you so surprised when I rose from the tomb on the third day? You failed to believe me because you heard my words without comprehending the meaning thereof.

193:0.3 (2052.3) “And now you should give ear to my words lest you again make the mistake of hearing my teaching with the mind while in your hearts you fail to comprehend the meaning. From the beginning of my sojourn as one of you, I taught you that my one purpose was to reveal my Father in heaven to his children on earth. I have lived the God-revealing bestowal that you might experience the God-knowing career. I have revealed God as your Father in heaven; I have revealed you as the sons of God on earth. It is a fact that God loves you, his sons. By faith in my word this fact becomes an eternal and living truth in your hearts. When, by living faith, you become divinely God-conscious, you are then born of the spirit as children of light and life, even the eternal life wherewith you shall ascend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attain the experience of finding God the Father on Paradise.

193:0.4 (2052.4) “I admonish you ever to remember that your mission among men i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 the reality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truth of the sonship of man. Proclaim the whole truth of the good news, not just a part of the saving gospel. Your message is not changed by my resurrection experience. Sonship with God, by faith, is still the saving truth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You are to go forth preaching the love of God and the service of man. That which the world needs most to know is: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rough faith they can actually realize, and daily experience, this ennobling truth. My bestowal should help all men to know that they are the children of God, but such knowledge will not suffice if they fail personally to faith-grasp the saving truth that they are the living spirit sons of the eternal Father.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concerned with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service of his children on earth.

193:0.5 (2053.1) “Among yourselves, here, you share the knowledge that I have risen from the dead, but that is not strange. I have the power to lay down my life and to take it up again; the Father gives such power to his Paradise Sons. You should be rather stirred in your hearts by the knowledge that the dead of an age entered upon the eternal ascent soon after I left Joseph's new tomb. I lived my life in the flesh to show how you can, through loving service, become God-revealing to your fellow men even as, by loving you and serving you, I have become God-revealing to you. I have lived among you as the Son of Man that you, and all

나의 일생을 살았다. 너희들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됨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너희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인류에게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만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는 너희를 커다란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主)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이 신자들이 헤어진 것은 거의 날이 썰 무렵이었다; 그들은 주(主)의 훈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모른시아 주(主)와 함께 가졌던 그들의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세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제 1 장. 시카에 나타나심

5월 13일 안식일 오후 4시 경에, 주(主)는 시카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75명가량의 사마리아인들과 날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예수가 생명의 물에 관하여 날다에게 말씀하였던 이 우물 근처의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그들이 이 날 부활의 소식에 대한 토의를 막 마쳤을 때, 예수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쁨을 향유하였지만, 만일 너희가 먼저 영으로 태어나고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앙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왕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한다. 이제 너희가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때가 다가 왔으니 이는 게리짐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니, 그것은 어디든지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너희로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너희 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신앙이다. 구원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구원이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증여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육신으로 살아 가면서 그에 따라 이 영 생명에서의 열매를 맺는 체험에 따라오는 것이다.

other men, might know that you are all indeed the sons of God. Therefore, go you now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to all men. Love all men as I have loved you; serve your fellow mortals as I have served you.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Only tarry here in Jerusalem while I go to the Father, and until I send you the Spirit of Truth. He shall lead you into the enlarged truth, and I will go with you into all the world. I am with you always, and my peace I leave with you.”

193:0.6 (2053.2) When the Master had spoken to them,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It was near daybreak before these believers dispersed; all night they remained together, earnestly discussing the Master's admonitions and contemplating all that had befallen them. James Zebedee and others of the apostles also told them of their experiences with the morontia Master in Galilee and recited how he had three times appeared to them.

1. THE APPEARANCE AT SYCHAR

193:1.1 (2053.3) About four o'clock on Sabbath afternoon, May 13, the Master appeared to Nalda and about seventy-five Samaritan believers near Jacob's well, at Sychar. The believers were in the habit of meeting at this place, near where Jesus had spoken to Nalda concerning the water of life. On this day, just as they had finished their discussions of the reported resurrection, Jesus suddenly appeared before them, saying:

193:1.2 (2053.4) “Peace be upon you. You rejoice to know that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but this will avail you nothing unless you are first born of the eternal spirit, thereby coming to possess, by faith, the gift of eternal life. If you are the faith sons of my Father, you shall never die; you shall not perish. The gospel of the kingdom has taught you that all men are the sons of God. And this good news concerning the love of the heavenly Father for his children on earth must be carried to all the world. The time has come when you worship God neither on Gerizim nor at Jerusalem, but where you are, as you are, in spirit and in truth. It is your faith that saves your souls. Salvation is the gift of God to all who believe they are his sons. But be not deceived; while salvation is the free gift of God and is bestowed upon all who accept it by faith, there follows the experience of bearing the fruits of this spirit life as it is lived in the flesh. The acceptance of the doctrine of the fatherhood of God implies that you also freely accept the associated truth of the brotherhood of man. And if man is your brother, he is even more than your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가 또한 사람들의 형제신분이라는 그에 연관된 진리도 자유롭게 거저 받아들이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너희 형제라면, 그는 실로 너희의 이웃보다 더한 것이고, 아버지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 형제는, 너희 가족으로 있으니, 너희가 가족의 애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너희가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할 것이니,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로 있고, 나에게서 것처럼 사랑과 봉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종족과 민족과 국가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라. 내 영이 너희 앞에서 먼저 갈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主)의 이 출현에 크게 놀랐으며 그들은 가까운 성읍과 마을로 급히 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는 소식을 그곳에서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주(主)의 17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제 2 장.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주(主)의 18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조금 전에 티레에서 있었다. 그는 신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쁨으로 향유해라.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너희들 자신과 너희 형제들도 역시 필사자 죽음에서 생존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은 너희에게 사전에 진리를-찾아 나서고 하느님을-발견하는 영적 탄생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다.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하느님을 향한—자들에게만,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빵과 물이 주어진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왕국 복음이 아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리들과 우주의 사실들은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이 복음과 관련되며 그리고 신앙으로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영원 하느님의 영속하는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그 후에 갖게 되는 체험에 포용된다. 내 아버지는 아들관계의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아들관계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하느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동료 창조체들에 대한 사랑 넘치는 봉사 안에서 영의 열매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태어나고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맺히게 되는 신성한 영의 열매들은: 사랑 넘치는 봉사, 사심-없는 헌신, 불굴의 충성심, 진지한 공정성, 깨우친 정직성, 사라지지 않는 희망, 자신하고 있는 신뢰, 자비로운 사명활동, 시종여일한 덕, 용서하는 인내심,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평

neighbor, whom the Father requires you to love as yourself. Your brother, being of your own family, you will not only love with a family affection, but you will also serve as you would serve yourself. And you will thus love and serve your brother because you, being my brethren, have been thus loved and served by me. Go, then, into all the world telling this good news to all creatures of every race, tribe, and nation. My spirit shall go before you, and I will be with you always.”

193:1.3 (2054.1) These Samaritans were greatly astonished at this appearance of the Master, and they hastened off to the near-by towns and villages, where they published abroad the news that they had seen Jesus, and that he had talked to them. And this was the seventeenth morontia appearance of the Master.

2. THE PHOENICIAN APPEARANCE

193:2.1 (2054.2) The Master's eighteenth morontia appearance was at Tyre, on Tuesday, May 16, at a little before nine o'clock in the evening. Again he appeared at the close of a meeting of believers, as they were about to disperse, saying:

193:2.2 (2054.3) “Peace be upon you. You rejoice to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risen from the dead because you thereby know that you and your brethren shall also survive mortal death. But such survival is dependent on your having been previously born of the spirit of truth-seeking and God-finding. The bread of life and the water thereof are given only to those who hunger for truth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 for God. The fact that the dead rise is not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se great truths and these universe facts are all related to this gospel in that they are a part of the result of believing the good news and are embraced in the subsequent experience of those who, by faith, become, in deed and in truth, the everlasting sons of the eternal God. My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to proclaim this salvation of sonship to all men. And so send I you abroad to preach this salvation of sonship. Salvation is the free gift of God, but those who are born of the spirit will immediately begin to show forth the fruits of the spirit in loving service to their fellow creatures. And th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which are yielded in the lives of spirit-born and God-knowing mortals are: loving service, unselfish devotion, courageous loyalty, sincere fairness, enlightened honesty, undying hope, confiding trust, merciful ministry, unfailing goodness, forgiving tolerance, and

화이다. 만일 신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성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어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다; 그들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며, 곧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뿌리들을 파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하늘방향으로 진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아버지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면서 멀리 퍼져 나갈 때, 나는 너희 앞에서 갈 것이며, 내 진리의 영은 너희의 가슴속에 거할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주(主)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다음 날 티레를 떠나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시돈,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과 다마스쿠스까지 전했다. 예수는 육신으로 계시 때 이 신자들과 함께 계셨었으며, 그들은 그가 자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모론시아 형태로 눈에 보였을 때 그의 친구들은 바로 인지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의 개인성을 정체성 확인하는 데 결코 느리지 않았다.

제 3 장.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출현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는 모론시아 개인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열한 사도들이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 식사를 듣기 위해 앉으려고 할 때,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곧 부어지고,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너희에게 자질로서 부여할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희에게 부탁했었다.” 시몬 켈로페가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그렇다면 주(主)여, 당신께서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라고 물었다. 시몬의 질문을 다 들으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와 물질적인 왕국에 대한 옛 관념들에 아직 매달려 있구나. 그러나 영이 너에게 임한 후에 너는 영적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너는 곧 온 세상에 나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유다는 그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충실한 형제인 너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 ‘혼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 살 수

enduring peace. If professed believers bear not these fruits of the divine spirit in their lives, they are dead; the Spirit of Truth is not in them; they are useless branches on the living vine, and they soon will be taken away. My Father requires of the children of faith that they bear much spirit fruit. If, therefore, you are not fruitful, he will dig about your roots and cut away your unfruitful branches. Increasingly, must you yield the fruits of the spirit as you progress heavenward in the kingdom of God. You may enter the kingdom as a child, but the Father requires that you grow up, by grace, to the full stature of spiritual adulthood. And when you go abroad to tell all nations the good news of this gospel, I will go before you, and my Spirit of Truth shall abide in your hearts. My peace I leave with you.”

193:2.3 (2054.4) And then the Master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The next day there went out from Tyre those who carried this story to Sidon and even to Antioch and Damascus. Jesus had been with these believers when he was in the flesh, and they were quick to recognize him when he began to teach them. While his friends could not readily recognize his morontia form when made visible, they were never slow to identify his personality when he spoke to them.

3. LAST APPEARANCE IN JERUSALEM

193:3.1 (2055.1) Early Thursday morning, May 18, Jesus made his last appearance on earth as a morontia personality. As the eleven apostles were about to sit down to breakfast in the upper chamber of Mary Mark's home, Jesus appeared to them and said:

193:3.2 (2055.2) “Peace be upon you. I have asked you to tarry here in Jerusalem until I ascend to the Father, even until I send you the Spirit of Truth, who shall soon be poured out upon all flesh, and who shall endow you with power from on high.” Simon Zelotes interrupted Jesus, asking, “Then, Master, will you restore the kingdom, and will we see the glory of God manifested on earth?” When Jesus had listened to Simon's question, he answered: “Simon, you still cling to your old ideas about the Jewish Messiah and the material kingdom. But you will receive spiritual power after the spirit has descended upon you, and you will presently go into all the world preaching this gospel of the kingdom. As the Father sent me into the world, so do I send you. And I wish that you would love and trust one another. Judas is no more with you because his love grew cold, and because he refused to trust you, his loyal brethren. Have you not read in the Scripture where it is written: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No man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또 '친구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어 가르치게 했을 때에도, 너희가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한 해독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나 혼자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초기부터, 나는 너희들 중에 두 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도록 하였고, 내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자신하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 때가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다."

말씀을 마친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유란시아를 떠나는 준비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올리브 산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장엄하였다. 그들은 다락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와 함께 올리브 산에서 설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제 4 장. 유다가 패망한 이유

주(主)께서 사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두에, 유다를 잃은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사회에서의 그리고 형제우애에서의 고립의 위험성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배반적인 동료 일꾼에 대한 비극적인 숙명을 거론하였다. 주(主)의 말씀에 조명하여, 그리고 지나간 수세기 동안에 계속 발전되어 온 깨우침의 견지에서, 유다의 실패 원인들을 간단히 돌이켜 보는 일은, 현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들의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비극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유다가, 애초부터, 그의 매우 두드러진 고립된 개인성, 통상적인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멀어지고 안으로 폐쇄된 개인성이기 때문에, 그릇됨에 빠졌다고 착상하고 있다. 그는 자기 동료 사도들을 신뢰하는 것과, 자유롭게 그들과 형제우애를 나누기를 완고하게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인성에서의 고립된 유형의 그의 존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가 것처럼 사랑을 키우고 영적 은혜 속에 자라는데 마참가지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유다에게 그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실상가상으로, 그는 고집스럽게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복수심과 같은 심리적인 적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실망감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똑같이 갚도록"하려는 일반화된 열망을 키wig고 있었다.

불운하게도 이렇게 조합된 개별적인 특성들과 정신적 경향들은, 사랑과 신앙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 이러한 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선의의 한 사람을 파괴하는데 공모하였다. 유다가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도마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의해 잘 증명될 수 있으며, 이 두 사람도 이와

lives to himself"? And also where it says: 'He who would have friends must show himself friendly'? And did I not even send you out to teach, two and two, that you might not become lonely and fall into the mischief and miseries of isolation? You also well know that, when I was in the flesh, I did not permit myself to be alone for long periods.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associations I always had two or three of you constantly by my side or else very near at hand even when I communed with the Father. Trust, therefore, and confide in one another. And this is all the more needful since I am this day going to leave you alone in the world. The hour has come; I am about to go to the Father."

193:3.3 (2055.3) When he had spoken, he beckoned for them to come with him, and he led them out on the Mount of Olives, where he bade them farewell preparatory to departing from Urantia. This was a solemn journey to Olivet. Not a word was spoken by any of them from the time they left the upper chamber until Jesus paused with them on the Mount of Olives.

4. CAUSES OF JUDAS'S DOWNFALL

193:4.1 (2055.4) It was in the first part of the Master's farewell message to his apostles that he alluded to the loss of Judas and held up the tragic fate of their traitorous fellow worker as a solemn warning against the dangers of social and fraternal isolation. It may be helpful to believers, in this and in future ages, briefly to review the causes of Judas's downfall in the light of the Master's remarks and in view of the accumulated enlightenment of succeeding centuries.

193:4.2 (2055.5) As we look back upon this tragedy, we conceive that Judas went wrong, primarily, because he was very markedly an isolated personality, a personality shut in and away from ordinary social contacts. He persistently refused to confide in, or freely fraternize with, his fellow apostles. But his being an isolated type of personality would not, in and of itself, have wrought such mischief for Judas had it not been that he also failed to increase in love and grow in spiritual grace. And then, as if to make a bad matter worse, he persistently harbored grudges and fostered such psychologic enemies as revenge and the generalized craving to "get even" with somebody for all his disappointments.

193:4.3 (2056.1) This unfortunate combination of individual peculiarities and mental tendencies conspired to destroy a well-intentioned man who failed to subdue these evils by love, faith, and trust. That Judas need not have gone wrong is well proved by the cases of Thomas and Nathaniel,

같은 종류의 의심과 과도한 개별존재적인 경향으로 괴로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안드레와 마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배움이 많았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형제들을 점점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는 능력을 서서히 발전시켰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속을 털어놓기를 끈질기게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감정적 갈등들의 누적으로 자아-표현에서 위안을 찾아 나서도록 강요되었을 때, 그는 변함없이, 영적이지 못한 자기 친척들이나 어쩌다 알게 된 우연히 만난 친구들로부터 어리석은 위안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그가 속한 이 세상에서 선별된 12명의 대사들이 속하는 하늘왕국의 영적 실체들의 진보와 번영에, 무관심하거나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자들이었다.

유다는 이 세상에서의 갈등과 투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향들과 성격적 연약성 때문에 패배하였다:

1. 그는 인간 존재에서 고립된 유형이었다. 그는 매우 개별적이었으며 뿌리가 깊어진 “문-닫힌” 가운데 성장하기를 선택하였으며 개인에서 비사회적인 유형이었다.

2. 소년 시절에 그는 너무 안일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방해 받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며 분개하였다. 그는 항상 승리를 기대하였다; 패자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 초라했다.

3. 그는 실망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기법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인간 실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실망감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개인적 어려움과 실망에 대하여, 특정한 누구이거나, 혹은 한 집단으로 있는 자기 연관-동료들을 비난하는 실천 관행에 어김없이 의존했다.

4. 그는 항상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복수의 관념을 항상 품었다.

5. 그는 사실들에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였다.

6. 그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가까운 연관-동료들과 의논하기를 싫어하였다; 실제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그는 순전히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主)께 상의하지 않았다.

7. 이러한 육신으로의 짧은 일생 동안 항상 공급되지는 않지만, 고상한 삶에 대한 실제 보상은 결국, 영적 상급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변치 않는 그의 개인성 고립의 결과로, 그의

both of whom were cursed with this same sort of suspicion and overdevelopment of the individualistic tendency. Even Andrew and Matthew had many leanings in this direction; but all these men grew to love Jesus and their fellow apostles more, and not less, as time passed. They grew in grace and in a knowledge of the truth. They became increasingly more trustful of their brethren and slowly developed the ability to confide in their fellows. Judas persistently refused to confide in his brethren. When he was impelled, by the accumulation of his emotional conflicts, to seek relief in self-expression, he invariably sought the advice and received the unwise consolation of his unspiritual relatives or those chance acquaintances who were either indifferent, or actually hostile, to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spiritual realities of the heavenly kingdom, of which he was one of the twelve consecrated ambassadors on earth.

193:4.4 (2056.2) Judas met defeat in his battles of the earth struggle because of the following factors of personal tendencies and character weakness:

193:4.5 (2056.3) 1. He was an isolated type of human being. He was highly individualistic and chose to grow into a confirmed “shut-in” and unsociable sort of person.

193:4.6 (2056.4) 2. As a child, life had been made too easy for him. He bitterly resented thwarting. He always expected to win; he was a very poor loser.

193:4.7 (2056.5) 3. He never acquired a philosophic technique for meeting disappointment. Instead of accepting disappointments as a regular and commonplace feature of human existence, he unfailingly resorted to the practice of blaming someone in particular, or his associates as a group, for all his personal difficulties and disappointments.

193:4.8 (2056.6) 4. He was given to holding grudges; he was always entertaining the idea of revenge.

193:4.9 (2056.7) 5. He did not like to face facts frankly; he was dishonest in his attitude toward life situations.

193:4.10 (2056.8) 6. He disliked to discuss his personal problems with his immediate associates; he refused to talk over his difficulties with his real friends and those who truly loved him. In all the years of their association he never once went to the Master with a purely personal problem.

193:4.11 (2056.9) 7. He never learned that the real rewards for noble living are, after all, spiritual prizes, which are not always distributed during this one short life in the flesh.

193:4.12 (2056.10) As a result of his persistent isolation

비탄은 배가 되었고, 그의 슬픔은 깊어졌으며, 그의 근심은 증강되었고, 그의 절망감은 심화되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거의 초과하였다.

자아-중심적이고 극도로 개별주의적인 이 사도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적으로,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마음적으로, 그는 의심이 많고 복수심이 가득하였다. 체질적으로, 그는 무뚝뚝하고 원한을 품었다. 감정적으로, 그는 사랑이 없었고 용서하는 것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그는 솔직하지 못하였고 거의 전적으로 자아-억제되어 있었다. 영적으로, 그는 거만하고 이기적 야심으로 차게 되었다. 살아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친구가 없었다.

선의를 가졌었고 한 때는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개인성 변환의 긴밀한 관계를 수년 동안 가진 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자기 동료들을 저버리고, 신성한 목적을 무시하고, 그의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主)를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어우러진 이러한 마음적인 요소들과 악의 영향들이 설명해 준다.

제 5 장. 주(主)의 상승

말이 없고 어느 정도 어리둥절히는 열 한 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가 올리브 산 서쪽 기슭에 도착한 것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경이었다. 그 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위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겔세마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는 이제 유란시아를 떠나기에 앞서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 그가 그들 앞에 서자, 지도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의 주위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主)가 말씀하였다: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려고 한다;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곧,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왕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동료들을 섬겨라. 너희 일생 속에서 맺히는 영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는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과 너희 속에서 내가 살았던 그 일생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이 너희를 보호하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내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잘 있어라.”

모로시아 주(主)가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소위 예수의 상

of personality, his griefs multiplied, his sorrows increased, his anxieties augmented, and his despair deepened almost beyond endurance.

193:4.13 (2057.1) While this self-centered and ultraindividualistic apostle had many psychic, emotional, and spiritual troubles, his main difficulties were: In personality, he was isolated. In mind, he was suspicious and vengeful. In temperament, he was surly and vindictive. Emotionally, he was loveless and unforgiving. Socially, he was unconfiding and almost wholly self-contained. In spirit, he became arrogant and selfishly ambitious. In life, he ignored those who loved him, and in death, he was friendless.

193:4.14 (2057.2) These, then, are the factors of mind and influences of evil which, taken altogether, explain why a well-meaning and otherwise onetime sincere believer in Jesus, even after several years of intimate association with his transforming personality, forsook his fellows, repudiated a sacred cause, renounced his holy calling, and betrayed his divine Master.

5. THE MASTER'S ASCENSION

193:5.1 (2057.3) It was almost half past seven o'clock this Thursday morning, May 18, when Jesus arrived on the western slope of Mount Olivet with his eleven silent and somewhat bewildered apostles. From this location, about two thirds the way up the mountain, they could look out over Jerusalem and down upon Gethsemane. Jesus now prepared to say his last farewell to the apostles before he took leave of Urantia. As he stood there before them, without being directed they knelt about him in a circle, and the Master said:

193:5.2 (2057.4) “I bade you tarry in Jerusalem until you were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I am now about to take leave of you; I am about to ascend to my Father, and soon, very soon, will we send into this world of my sojourn the Spirit of Truth; and when he has come, you shall begin the new proclamation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first in Jerusalem and then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world. Love men with the love wherewith I have loved you and serve your fellow mortals even as I have served you. By the spirit fruits of your lives impel souls to believe the truth that man is a son of God, and that all men are brethren. Remember all I have taught you and the life I have lived among you. My love overshadows you, my spirit will dwell with you, and my peace shall abide upon you. Farewell.”

193:5.3 (2057.5) When the morontia Master had thus spoken,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This so-

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유란시아에서 모론시아의 생애를 사신 40일 동안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신 다른 경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주(主)는 예루셈을 거쳐 에덴시아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의 감독 아래, 지고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론시아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상승하는 영적 통로를 통해, 파라다이스의 아들관계의 지위로 그리고 구원자별의 최극 주권자의 지위로 돌아왔다.

모론시아 예수가 자기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네바돈 우주에 대한 그의 완벽한 주권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그의 열 한 명의 사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이 날 아침 7시 45분경이었다.

제 6 장. 베드로가 회의를 소집함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요한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모이도록 수제자들을 부르러 나갔다. 10시 30분이 되었을 때, 120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의 제자 대부분이 주(主)의 작별 설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상승에 대해 알기 위하여 모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사도들이 최근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도 요한 세베대와 함께 왔다. 그녀는 오순절이 지난 직후에 벳세다에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이 회의, 주(主)가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후에 소집된 그의 제자들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자청하여 동료 사도들을 대신하여 말하였으며, 열 한 사도들과 주(主)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설명하였고 주(主)의 마지막 인사와 상승하여 사라지시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그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 천거된 두 사람, 맛디아와 유스도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休會)가 선언되었다.

그 후에 열 한 사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두 사람 중에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기로 동의하였다. 제비는 맛디아 쪽으로 뽑혔으며, 그는 새로운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는 직책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으며 회계원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맛디아는 그 후의 사도들의 활동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called ascension of Jesus was in no way different from his other disappearances from mortal vision during the forty days of his morontia career on Urantia.

193:5.4 (2057.6) The Master went to Edentia by way of Jerusalem, where the Most Highs,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Paradise Son, released Jesus of Nazareth from the morontia state and, through the spirit channels of ascension, returned him to the status of Paradise sonship and supreme sovereignty on Salvington.

193:5.5 (2057.7) It was about seven forty-five this morning when the morontia Jesus disappeared from the observation of his eleven apostles to begin the ascent to the right hand of his Father, there to receive formal confirmation of his completed sovereignty of the universe of Nebadon.

6. PETER CALLS A MEETING

193:6.1 (2058.8) Acting upon the instruction of Peter, John Mark and others went forth to call the leading disciples together at the home of Mary Mark. By ten thirty, one hundred and twenty of the foremost disciples of Jesus living in Jerusalem had forgathered to hear the report of the farewell message of the Master and to learn of his ascension. Among this company was Mary the mother of Jesus. She had returned to Jerusalem with John Zebedee when the apostles came back from their recent sojourn in Galilee. Soon after Pentecost she returned to the home of Salome at Bethsaida. James the brother of Jesus was also present at this meeting, the first conference of the Master's disciples to be called after the termination of his planetary career.

193:6.2 (2058.1) Simon Peter took it upon himself to speak for his fellow apostles and made a thrilling report of the last meeting of the eleven with their Master and most touchingly portrayed the Master's final farewell and his ascension disappearance. It was a meeting the like of which had never before occurred on this world. This part of the meeting lasted not quite one hour. Peter then explained that they had decided to choose a successor to Judas Iscariot, and that a recess would be granted to enable the apostles to decide between the two men who had been suggested for this position, Matthias and Justus.

193:6.3 (2058.2) The eleven apostles then went downstairs, where they agreed to cast lots in order to determine which of these men should become an apostle to serve in Judas's place. The lot fell on Matthias, and he was declared to be the new apostle. He was duly inducted into his office and then appointed treasurer. But Matthias had little part in the subsequent activities of the apostles.

오순절이 지나간 직후에 쌍둥이 형제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 시몬 켈로페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한 동안 쉬었다. 도마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고민한 후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다니엘은 초기의 왕국 복음 대신에 예수에 관하여 설교하는 베드로와 점점 더 의견이 달라졌다. 이 의견 차이가 그 다음 달 중순경에 너무 심화되어, 나다니엘이 물러났고, 그는 아브너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일 년 이상 머문 후에,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 땅으로 갔다.

원래의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남은 6명은 예루살렘에서의 초기 복음 선포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되었으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태가 그들이었다.

정오 무렵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으며 맛디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그 기도는 주(主)가 보내겠다고 약속했었던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193:6.4 (2058.3) Soon after Pentecost the twins returned to their homes in Galilee. Simon Zelotes was in retirement for some time before he went forth preaching the gospel. Thomas worried for a shorter period and then resumed his teaching. Nathaniel differed increasingly with Peter regarding preaching about Jesus in the place of proclaiming the former gospel of the kingdom. This disagreement became so acute by the middle of the following month that Nathaniel withdrew, going to Philadelphia to visit Abner and Lazarus; and after tarrying there for more than a year, he went on into the lands beyond Mesopotamia preaching the gospel as he understood it.

193:6.5 (2058.4) This left but six of the original twelve apostles to become actors on the stage of the early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Jerusalem: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and Matthew.

193:6.6 (2058.5) Just about noon the apostles returned to their brethren in the upper chamber and announced that Matthias had been chosen as the new apostle. And then Peter called all of the believers to engage in prayer, prayer that they might be prepared to receive the gift of the spirit which the Master had promised to send.

제 194 편 진리의 영 증여

⇨ 193

유랜시아 책

195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4 편 진리의 영 증여

섹션

소개

제 1 장. 오순절 설교

제 2 장. 오순절의 의의(意義)

제 3 장. 오순절에 일어난 일

제 4 장. 그리스도인 교회의 시작

PAPER 194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SECTIONS

Introduction

1. The Pentecost Sermon

2.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3. What Happened at Pentecost

4. Beginnings of the Christian Church

소개

약 1시 경에,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방 안에서 이상한 현존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 영적 기쁨과 안심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하나의 새롭고도 깊은 느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 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후 즉시,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과 왕국 복음을 나가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주(主)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였던 진리의 영이 도래하였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그 기쁜 소식을 성전으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도해야 할 복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아들관계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었지만, 영적 흥분과 개인적 승리감의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소식, 가장 엄청난 소식은 주(主)가 부활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예수를 통한 구원까지도—을 전파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지만 복음에 연관되는 사실들

INTRODUCTION

194:0.1 (2059.1) ABOUT one o'clock, as the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were engaged in prayer, they all became aware of a strange presence in the room. At the same time these disciples all became conscious of a new and profound sense of spiritual joy, security, and confidence. This new consciousness of spiritual strength was immediately followed by a strong urge to go out and publicly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the good news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194:0.2 (2059.2) Peter stood up and declared that this must be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which the Master had promised them and proposed that they go to the temple and begin the proclamation of the good news committed to their hands. And they did just what Peter suggested.

194:0.3 (2059.3) These men had been trained and instructed that the gospel which they should preach was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sonship of man, but at just this moment of spiritual ecstasy and personal triumph, the best tidings, the greatest news, these men could think of was the *fact* of the risen Master. And so they went forth, endowed with power from on high, preaching glad tidings to the people — even salvation through Jesus — but

의 몇 개로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앞장섰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고, 기쁜 소식의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새 종교를 창시한 바울에 까지 이어졌다.

왕국 복음은 이것이다: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사실, 이와 나란히 짝을 이루는 사람들의 형제신분-아들관계의 결과적 진리이다. 그리스도교는, 그 날부터 발전된 바와 같이, 이것이다: 일어났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갖는 믿는 자-친교관계의 체험과 관련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사실이다.

영이 주입(注入)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主)를 죽이려 하고 그의 가르침의 영향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그 세력에 대해 자신들의 승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와 그들의 개인적 관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主)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자신들과의 친구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약속대로 영이 정말로 도래하였다는 확신으로 감동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이었다.

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세계, 기쁨과 힘과 영광의 새로운 생활로 갑자기 전환되었음을 느꼈다. 주(主)는 그들에게 왕국이 힘을 가지고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그가 의미하였던 것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려되고 나면,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이라는 내용의 초기 메시지 대신에 예수에 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하는 것이 쉬워진다.

제 1 장. 오순절 설교

사도들은 지난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이 축제를 위하여 도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이후 계속 그 성안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움츠렸던 사도들은 그들의 몇 주간의 은거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성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한 메시아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통찰력과 힘의 새로운 영적 자질을 받아들였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주(主)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열정적으로 호소하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호소를 한 것은 2시 경이었다. 주(主)는 떠났지만, 그들은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

they unintentionally stumbled into the error of substituting some of the facts associated with the gospel for the gospel message itself. Peter unwittingly led off in this mistake, and others followed after him on down to Paul, who created a new religion out of the new version of the good news.

194:0.4 (2059.4)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the fact of the fatherhood of God, coupled with the resultant truth of the sonship-brotherhood of men. Christianity, as it developed from that day, is: the fact of God as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in association with the experience of believer-fellowship with the risen and glorified Christ.

194:0.5 (2059.5) It is not strange that these spirit-infused men should have seized upon this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eelings of triumph over the forces which had sought to destroy their Master and end the influence of his teachings. At such a time as this it was easier to remember their personal association with Jesus and to be thrilled with the assurance that the Master still lived, that their friendship had not ended, and that the spirit had indeed come upon them even as he had promised.

194:0.6 (2059.6) These believers felt themselves suddenly translated into another world, a new existence of joy, power, and glory. The Master had told them the kingdom would come with power, and some of them thought they were beginning to discern what he meant.

194:0.7 (2059.7) And when all of thi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se men came to preach a *new gospel about Jesus* in the place of their former message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1. THE PENTECOST SERMON

194:1.1 (2060.1) The apostles had been in hiding for forty days. This day happened to be the Jewish festival of Pentecost, and thousands of visitor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were in Jerusalem. Many arrived for this feast, but a majority had tarried in the city since the Passover. Now these frightened apostles emerged from their weeks of seclusion to appear boldly in the temple, where they began to preach the new message of a risen Messiah. And all the disciples were likewise conscious of having received some new spiritual endowment of insight and power.

194:1.2 (2060.2) It was about two o'clock when Peter stood up in that very place where his Master had last taught in this temple, and delivered that impassioned appeal which resulted in the winning of more than two thousand souls. The Master had

들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정당화하며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를 믿도록 강요하는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여섯 명의 사도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마테였다. 그들은 1시간 30분 이상 이야기하였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몇 마디씩 설교하였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사도들의 대담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4시 30분경에 2,000명 이상의 새 신자들이 사도들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主)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날이 어두워져야 그들은 이 군중들에게 세례를 다 마칠 수 있었다.

오순절은 야훼를 섬기려는 할례의 의무가 없는 이방인들이 서로 교체하는 기간으로 세례의 큰 축제였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가 이 날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유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동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는, 유대인의 의식적(儀式的) 체계의 기본 조건들을 여전히 신봉하였다.

gone, but they suddenly discovered that this story about him had great power with the people. No wonder they were led on into the further proclamation of that which vindicated their former devotion to Jesus and at the same time so constrained men to believe in him. Six of the apostles participated in this meeting: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and Matthew. They talked for more than an hour and a half and delivered messages in Greek, Hebrew, and Aramaic, as well as a few words in even other tongues with which they had a speaking acquaintance.

194:1.3 (2060.3) The leaders of the Jews were astounded at the boldness of the apostles, but they feared to molest them because of the large numbers who believed their story.

194:1.4 (2060.4) By half past four o'clock more than two thousand new believers followed the apostles down to the pool of Siloam, wher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baptized them in the Master's name. And it was dark when they had finished with baptizing this multitude.

194:1.5 (2060.5) Pentecost was the great festival of baptism, the time for fellowshipping the proselytes of the gate, those gentiles who desired to serve Yahweh. It was, therefore, the more easy for large numbers of both the Jews and believing gentiles to submit to baptism on this day. In doing this, they were in no way disconnecting themselves from the Jewish faith. Even for some time after this the believers in Jesus were a sect within Judaism. All of them, including the apostles, were still loyal to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Jewish ceremonial system.

제 2 장. 오순절의 의의(意義)

예수는 땅에서 사셨으며, 그리고 사람이 악마의 자손이라는 미신으로부터 사람을 되찾아 회복해서 그를 하느님의 신앙 아들의 존엄으로 들어올리는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의 메시지는, 그의 시대에 그가 그것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신 것처럼, 그것이 진술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영적 어려움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 그의 진리의 영을 보내는데, 이는 사람 안에 살도록,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예수 메시지를 다시 진술하도록, 그래서 이 땅 표면에 새로 나타나는 필사자들의 모든 새로운 집단마다 복음의 새롭고도 가장 최선의 해석본을 가지도록, 바로 그러한 것이 사람의 언제까지나-새롭고도 다양해지는 영적 고난들에 대해 효과있는 해결이 될 것임을 입증하는, 개인적 깨우침과 집단적 안내가 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영의 첫 번째 임무는, 물론, 진리를 육성하고 그리고 개인성구현하는 것이니, 이는 인간 해방의 최고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

2. THE SIGNIFICANCE OF PENTECOST

194:2.1 (2060.6) Jesus lived on earth and taught a gospel which redeemed man from the superstition that he was a child of the devil and elevated him to the dignity of a faith son of God. Jesus' message, as he preached it and lived it in his day, was an effective solvent for man's spiritual difficulties in that day of its statement. And now that he has personally left the world, he sends in his place his Spirit of Truth, who is designed to live in man and, for each new generation, to restate the Jesus message so that every new group of mortals to appear upon the face of the earth shall have a new and up-to-date version of the gospel, just such personal enlightenment and group guidance as will prove to be an effective solvent for man's ever-new and varied spiritual difficulties.

194:2.2 (2060.7) The first mission of this spirit is, of course, to foster and personalize truth, for it is the comprehension of truth that constitutes the highest

한 이해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영의 목적은 신자들이 가지는 고아-신분의 느낌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 진리의 영이 사람들 가슴속에 내주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면, 모든 신자들은 외로움의 감각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아들의 영의 이 증여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영(조절자)의 우주적 증여를 위하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은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 둘 모두의 영이다.

부어진 진리의 영을 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영은 결코 그 스스로에 대한 의식(意識)을 창조하지 않으며, 오직 아들인 미가엘의 의식만 창조한다. 처음부터 예수는 영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너희의 친교의 증거는 이 영에 대한 너희의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너희의 미가엘과 더욱 강화된 친교의 체험 속에서 발견된다.

영은 또한 사람이 주(主)의 말씀을 상기하고 납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의 일생을 조명하고 재-해석하기 위하여 왔다.

다음으로, 진리의 영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일생에서의 실체, 그가 육신으로 그것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준, 그리고 이제 다시 각각 지나가는 세대들의, 영으로-채워진 하느님의 아들들의 개별 신자 안에서, 또 새로운 그리고 또 육신으로 그것을 살고 그에 따라 보여주는, 그 실체들을 신자가 목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하여, 진리의 영은 실제로 모든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영원하고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관계로 살아있고 성장하는 영적 의식의 체험의 확대되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어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따르려고 시도하는 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을 계시한 그런 일생을 사셨다. 육신으로의 이러한 일생은, 곧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난 부활과 더불어, 악한 자의 쇠사슬로부터—하나신 하느님의 유죄판결로부터—사람을 다시 사기 위해 그렇게 지불된 속죄의 새로운 복음으로 되어 버렸다. 복음이 크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초기 왕국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많이 함께 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만간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들은 모든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능에서의 오류들은 신자의 영적 성장의 커다란 진보를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 사도들은 진리의 영이 증여된 후 한

form of human liberty. Next, it is the purpose of this spirit to destroy the believer's feeling of orphanhood. Jesus having been among men, all believers would experience a sense of loneliness had not the Spirit of Truth come to dwell in men's hearts.

194:2.3 (2061.1) This bestowal of the Son's spirit effectively prepared all normal men's minds for the subsequent universal bestowal of the Father's spirit (the Adjuster) upon all mankind. In a certain sense, this Spirit of Truth is the spirit of both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reator Son.

194:2.4 (2061.2) Do not make the mistake of expecting to become strongly intellectually conscious of the outpoured Spirit of Truth. The spirit never creates a consciousness of himself, only a consciousness of Michael, the Son. From the beginning Jesus taught that the spirit would not speak of himself. The proof, therefore, of your fellowship with the Spirit of Truth is not to be found in your consciousness of this spirit but rather in your experience of enhanced fellowship with Michael.

194:2.5 (2061.3) The spirit also came to help men recall and understand the words of the Master as well as to illuminate and reinterpret his life on earth.

194:2.6 (2061.4) Next, the Spirit of Truth came to help the believer to witness to the realities of Jesus' teachings and his life as he lived it in the flesh, and as he now again lives it anew and afresh in the individual believer of each passing generation of the spirit-filled sons of God.

194:2.7 (2061.5) Thus it appears that the Spirit of Truth comes really to lead all believers into all truth, into the expanding knowledge of the experience of the living and growing spiritual consciousness of the reality of eternal and ascending sonship with God.

194:2.8 (2061.6) Jesus lived a life which is a revelation of man submitted to the Father's will, not an example for any man literally to attempt to follow. This life in the flesh, together with his death on the cross and subsequent resurrection, presently became a new gospel of the ransom which had thus been paid in order to purchase man back from the clutch of the evil one — from the condemnation of an offended God. Nevertheless, even though the gospel did become greatly distorted, it remains a fact that this new message about Jesus carried along with it many of the fundamental truths and teachings of his earlier gospel of the kingdom. And, sooner or later, these concealed truths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en will emerge to effectually transform the civilization of all mankind.

194:2.9 (2061.7) But these mistakes of the intellect in no way interfered with the believer's great progress in growth in spirit. In less than a month

달도 못되어서, 거의 4년에 걸친 주(主)와의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별적인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관계에서의 구원하는 복음 진리 대신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대치시킨 것도, 그들의 가르침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하였다; 그의 인물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메시지에 드리워진 이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소식의 전파를 크게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영의 세례(洗禮)”라는 용어는, 단지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선물의 의식적인 받아들임과, 새로운 이 영적 힘이 하느님을 아는 혼들이 전에 체험하였던 모든 영적 영향들이 증강된 것임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진리의 영이 증여된 이후로, 사람은 아버지의 영, 생각 조절자;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영의 영, 성령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삼중적 영 자질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얼마간, 인류는 우주 영의 영향들의 일곱 가지 힘의 중복된 작용을 필요로 한다. 필사자들의 초기 진화 종족들은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의 일곱 가지 보조 마음-영들의 진보적 접촉이 필요하다. 사람이 지능과 영적 지각의 눈금에서 상향 진보하면, 결국에는 일곱 가지의 더 높은 영(靈)의 영향들이 그에게 날아와서 그의 안에 내주 하게 된다. 그리고 진보하는 세계들의 이 일곱 가지 영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아버지의 증여된 영(靈)—생각 조절자들.

2.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우주들의 우주의 영 중력 그리고 모든 영 교제의 확실한 경로.

3. 무한한 영(靈)의 영 현존—모든 창조의 우주 영-마음, 진보하는 모든 지능들의 지적 친족관계의 영적 근원.

4. 우주 아버지와 창조자 아들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아들의 영으로 간주되는 진리의 영.

5. 무한한 영(靈)의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영의 영으로 간주되는 성령.

6. 우주 어머니 영의 마음-영—지역우주의 일곱 보조 마음-영들.

after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the apostles made more individual spiritual progress than during their almost four years of personal and loving association with the Master. Neither did this substitution of the *fac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for the saving gospel *truth* of sonship with God in any way interfere with the rapid spread of their teachings; on the contrary, this overshadowing of Jesus' message by the new teachings about his person and resurrection seemed greatly to facilitate the preaching of the good news.

194:2.10 (2061.8) The term “baptism of the spirit,” which came into such general use about this time, merely signified the conscious reception of this gift of the Spirit of Truth and the personal acknowledgment of this new spiritual power as an augmentation of all spiritual influences previously experienced by God-knowing souls.

194:2.11 (2061.9) Since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man is subject to the teaching and guidance of a threefold spirit endowment: the spirit of the Father, the Thought Adjuster; the spirit of the Son,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the Spirit, the Holy Spirit.

194:2.12 (2062.1) In a way, mankind is subject to the double influence of the sevenfold appeal of the universe spirit influences. The early evolutionary races of mortals are subject to the progressive contact of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Mother Spirit. As man progresses upward in the scale of intelligence and spiritual perception, there eventually come to hover over him and dwell within him the seven higher spirit influences. And these seven spirits of the advancing worlds are:

194:2.13 (2062.2) 1. The bestowed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 the Thought Adjusters.

194:2.14 (2062.3) 2. The spirit presence of the Eternal Son — the spirit gravity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and the certain channel of all spirit communion.

194:2.15 (2062.4) 3. The spirit presence of the Infinite Spirit — the universal spirit-mind of all creation, the spiritual source of the intellectual kinship of all progressive intelligences.

194:2.16 (2062.5) 4. The spirit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Creator Son — the Spirit of Truth, generally regarded as the spirit of the Universe Son.

194:2.17 (2062.6) 5. The spirit of the Infinite Spirit and the Universe Mother Spirit — the Holy Spirit, generally regarded as the spirit of the Universe Spirit.

194:2.18 (2062.7) 6. The mind-spirit of the Universe Mother Spirit — the seven adjutant mind-spirits of the local universe.

7. 아버지, 아들들 그리고 영들의 영—영으로 태어난 필사자의 혼과 파라다이스 생각 조절자의 융합 이후 그리고 그에 따라 나중에 파라다이스 최후의 무리단의 지위에서의 신성과 영광을 받은 이후에, 영역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가지는 새로운-이름의 영.

그리하여 그렇게 진리의 영의 증여는 하느님을 찾아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계획된 영 자질의 마지막을 세상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제 3 장. 오순절에 일어난 일

쓸모없고 이상한 많은 가르침들이 오순절 날의 초기 이야기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시대들 속에서, 인류에 내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생님이 진리의 영이 왔던 이날의 사건들은 사납게 휩쓸린 감정주의의 어리석은 봉기들과 혼동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 이 영의 주된 사명활동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에 대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성격의 신성한 특색들 보다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의 진리들이다. 진리의 영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영에 대한 본성과 아들의 도덕적인 성격을 계시하는데 관계가 있다 창조자 아들은 육신으로 하느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였다; 진리의 영은 가슴으로 창조자 아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사람이 그의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들”을 맺었을 때, 그는 단순히 주(主)께서 이 세상에서 그자신의 일생 속에 현시되하셨던 그 특색들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뿐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하나의 개인성—나사렛 예수—로서 그의 일생을 영위하였다. 오순절 이후, 주(主)는 “새로운 선생”의 내주하는 영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신자의 체험 속에서 그의 새로운 일생을 사실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일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이 진리가 우세하고 정의(正義)가 승리하는 그러한 우주라는 관념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너무나 자주 중상, 거짓말, 부정직, 그리고 불의—죄—가 득세하는 것이 나타난다. 신앙이, 결국에는, 악과 죄와 사악한 불의를 이기게 될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과 죽음이 선(善)의 진리와, 영으로 인도 받는 창조체의 신앙이 항상 정당화된다는 영원한 증명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하느님이 와서 그를 구원하시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조롱하였다. 십자가형의 그날은 암울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영화롭게 빛났다; 오순절에는 여전히 더욱 빛나고 그리고 더욱 기쁨 넘치는 날이었다. 비관론적인 절망의 종교들은 일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그들은 끝없는 수면과 휴식 안에서 절멸되기를 갈망한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이다. 예수의 종교는 분투하고 있는 인간성에 대하여 선포되는 신앙의 새 복음이다. 새로운 이 종교는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 위에

194:2.19 (2062.8) 7. The spirit of the Father, Sons, and Spirits — the new-name spirit of the ascending mortals of the realms after the fusion of the mortal spirit-born soul with the Paradise Thought Adjuster and after the subsequent attainment of the divinity and glorification of the status of the Paradise Corps of the Finality.

194:2.20 (2062.9) And so did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bring to the world and its peoples the last of the spirit endowment designed to aid in the ascending search for God.

3. WHAT HAPPENED AT PENTECOST

194:3.1 (2062.10) Many queer and strange teachings became associated with the early narratives of the day of Pentecost. In subsequent times the events of this day, on which the Spirit of Truth, the new teacher, came to dwell with mankind, have become confused with the foolish outbreaks of rampant emotionalism. The chief mission of this outpoured spirit of the Father and the Son is to teach men about the truths of the Father's love and the Son's mercy. These are the truths of divinity which men can comprehend more fully than all the other divine traits of character. The Spirit of Truth is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revelation of the Father's spirit nature and the Son's moral character. The Creator Son, in the flesh, revealed God to men; the Spirit of Truth, in the heart, reveals the Creator Son to men. When man yields the “fruits of the spirit” in his life, he is simply showing forth the traits which the Master manifested in his own earthly life. When Jesus was on earth, he lived his life as one personality — Jesus of Nazareth. As the indwelling spirit of the “new teacher,” the Master has, since Pentecost, been able to live his life anew in the experience of every truth-taught believer.

194:3.2 (2062.11) Many things which happen in the course of a human life are hard to understand,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idea that this is a universe in which truth prevails and in which righteousness triumphs. It so often appears that slander, lies, dishonesty, and unrighteousness — sin — prevail. Does faith, after all, triumph over evil, sin, and iniquity? It does. And the life and death of Jesus are the eternal proof that the truth of goodness and the faith of the spirit-led creature will always be vindicated. They taunted Jesus on the cross, saying, “Let us see if God will come and deliver him.” It looked dark on that day of the crucifixion, but it was gloriously bright on the resurrection morning; it was still brighter and more joyous on the day of Pentecost. The religions of pessimistic despair seek to obtain release from the burdens of life; they crave extinction in endless slumber and rest. These are the religions of primitive fear and dread. The religion of Jesus is a

세워진다.

필사자 인생은 예수께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통한 일격(一擊)을 가하였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앙과 용기와 확고한 결단력으로 절망의 이 사명활동들에 대처하였다. 예수는 인생의 무시무시한 실체 속에서 생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정복하였다 — 죽음에서까지도. 그는 인생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다른 실존의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 인생을 피하려고 추구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들이 현재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을 고양하고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영적 실존의 기쁨과 평화를 제공한다.

만일 종교가 인간에게 마취제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거절하였으며,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그의 영은 높은 곳을 향하도록 사람을 이끌고, 계속 향하도록 그를 충동하는 막강한 세계적 영향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영적 충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힘차게 몰아가는 기세이다; 진리를 배우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혼을 가진 자이다.

그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모든 국가적 제약들과 종족간의 족쇄들을 없애버렸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는 말은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이 날, 진리의 영은 주(主)로부터 모든 필사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선물이 되었다. 이 영은 왕국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신자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목적으로 증여되었지만, 그들은 쏟아 부어지는 영을 받는 체험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새로운 복음의 일부분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진리의 영이 모든 진실 된 신자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 영의 선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이 새로운 선생을 받았으며, 온 세상의 정직한 가슴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새로운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되었으며,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 실체를 파악하고 깨닫는 힘에 따라서 모든 혼은 그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참된 종교는 사제들과 그리고 모든 신성한 계층들의 보호관리에서 해방되고, 사람들의 개별적인 혼 안에서 그 실제 현시활동을 발견한다.

예수의 종교는 영적 개인성에서의 가장 높은 유형을 창조하고 그 개인의 신성함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인간 문명을 육성한다.

오순절에 진리의 영의 도래는 급진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되지도 않고 젊은 사

new gospel of faith to be proclaimed to struggling humanity. This new religion is founded on faith, hope, and love.

194:3.3 (2063.1) To Jesus, mortal life had dealt its hardest, cruelest, and bitterest blows; and this man met these ministrations of despair with faith, courage, and the unswerving determination to do his Father's will. Jesus met life in all its terrible reality and mastered it — even in death. He did not use religion as a release from life. The religion of Jesus does not seek to escape this life in order to enjoy the waiting bliss of another existence. The religion of Jesus provides the joy and peace of another and spiritual existence to enhance and ennoble the life which men now live in the flesh.

194:3.4 (2063.2) If religion is an opiate to the people, it is not the religion of Jesus. On the cross he refused to drink the deadening drug, and his spirit, poured out upon all flesh, is a mighty world influence which leads man upward and urges him onward. The spiritual forward urge is the most powerful driving force present in this world; the truth-learning believer is the one progressive and aggressive soul on earth.

194:3.5 (2063.3) On the day of Pentecost the religion of Jesus broke all national restrictions and racial fetters. It is forever true,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On this day the Spirit of Truth became the personal gift from the Master to every mortal. This spirit was bestowed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believers more effectively to preach the gospel of the kingdom, but they mistook the experience of receiving the outpoured spirit for a part of the new gospel which they were unconsciously formulating.

194:3.6 (2063.4) Do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Spirit of Truth was bestowed upon all sincere believers; this gift of the spirit did not come only to the apostles. The one hundred and twenty men and women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all received the new teacher, as did all the honest of heart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is new teacher was bestowed upon mankind, and every soul received him in accordance with the love for truth and the capacity to grasp and comprehend spiritual realities. At last, true religion is delivered from the custody of priests and all sacred classes and finds its real manifestation in the individual souls of men.

194:3.7 (2063.5) The religion of Jesus fosters the highest type of human civilization in that it creates the highest type of spiritual personality and proclaims the sacredness of that person.

194:3.8 (2063.6)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on Pentecost made possible a religion which is neither radical nor conservative; it is neither the old nor the new; it is to be dominated neither by the old

람들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는다. 예수 of 땅에서의 일생의 사실은 시간의 닻을 위한 고정된 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진리의 영의 수여는 그가 실천하였던 그 종교와 그가 전파하였던 그 복음의 영속하는 확대와 끝없는 성장을 제공한다. 영은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는 끝없는 진보와 신성한 전개로 확대되고 항상 성장하는 종교의 선생이다. 이 새로운 선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에게, 사람의 아들의 개인 안에 그리고 본성 안에 신성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펼쳐 줄 것이다.

“새로운 선생”의 증여와 연관된 현시활동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종족들과 나라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임은 예수의 종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국 복음은 그 어떠한 특정한 종족, 문화 또는 언어도 없이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오순절의 이 날이 그것의 고유한 유대교의 속박으로부터 예수의 종교를 해방시키는 영의 커다란 수고를 입증하였다. 모든 육체에 영이 부여된 이 실증이 있는 후에도 역시, 처음에 사도들은 유대주의의 요구조건들을 그들의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는 바울도 그가 이방인들을 이 유대교 실천 관행들에 복종시키려 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다. 계시된 종교는 그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화가 침투되거나, 또는 확립된 인종적(人種的), 사회적(社會的), 또는 경제적 실천 관행들과 연관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에는 모든 세계로 퍼지지 못한다.

진리의 영의 증여는 모든 형식들, 의식(儀式)들, 거룩한 장소들, 그리고 그것의 현시활동을 충만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별한 행위와 무관하였다.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다만 아무 소리 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영은 도시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수여되었다. 사도들은 영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뿔뿔이 헤어져 외로운 곳에서 몇 년간의 고독한 목상이 필요 없었다. 모든 시간에서, 오순절은 특별하게 은혜로운 환경들에 대한 통념으로부터 영적 체험의 관념을 분리하여 연관되지 않도록 한다.

오순절은, 그것의 영적 자질(자질)로, 주(主)의 종교를 모든 물리적인 기세에 의존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풀어내도록 예정되었다; 이 새로운 종교의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들을 구비하였다. 그들은 끊임없는 용서, 비할 바 없는 선한 뜻, 그리고 풍부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며 진리에 대한 용감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파괴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예수는 자신의 종교가 결코 피동적이 아님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현시활동과 자비의 사명활동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 신자들은 야훼를 더 이상 “우리들의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신(神)을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

nor the young. The fact of Jesus' earthly life provides a fixed point for the anchor of time, while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provides for the everlasting expansion and endless growth of the religion which he lived and the gospel which he proclaimed. The spirit guides into all truth; he is the teacher of an expanding and always-growing religion of endless progress and divine unfolding. This new teacher will be forever unfolding to the truth-seeking believer that which was so divinely folded up in the person and nature of the Son of Man.

194:3.9 (2064.1) The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the bestowal of the “new teacher,” and the reception of the apostles' preaching by the men of various races and nations gathered together at Jerusalem, indicate the universality of the religion of Jesus. The gospel of the kingdom was to be identified with no particular race, culture, or language. This day of Pentecost witnessed the great effort of the spirit to liberate the religion of Jesus from its inherited Jewish fetters. Even after this demonstration of pouring out the spirit upon all flesh, the apostles at first endeavored to impose the requirements of Judaism upon their converts. Even Paul had trouble with his Jerusalem brethren because he refused to subject the gentiles to these Jewish practices. No revealed religion can spread to all the world when it makes the serious mistake of becoming permeated with some national culture or associated with established racial, social, or economic practices.

194:3.10 (2064.2) The bestowal of the Spirit of Truth was independent of all forms, ceremonies, sacred places, and special behavior by those who received the fullness of its manifestation. When the spirit came upon those assembled in the upper chamber, they were simply sitting there, having just been engaged in silent prayer. The spirit was bestowed in the country as well as in the city.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apostles to go apart to a lonely place for years of solitary meditation in order to receive the spirit. For all time, Pentecost disassociates the idea of spiritual experience from the notion of especially favorable environments.

194:3.11 (2064.3) Pentecost, with its spiritual endowment, was designed forever to loose the religion of the Master from all dependence upon physical force; the teachers of this new religion are now equipped with spiritual weapons. They are to go out to conquer the world with unfailing forgiveness, matchless good will, and abounding love. They are equipped to overcome evil with good, to vanquish hate by love, to destroy fear with a courageous and living faith in truth. Jesus had already taught his followers that his religion was never passive; always were his disciples to be active and positive in their ministry of mercy and in their manifestations of love. No longer did these believers look upon Yahweh as “the Lord of

버지”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이 또한 모든 개별존재의 영적 아버지라는 진리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실패하였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는 진보를 이루었다.

오순절은 필사 사람에게 개인적 상처를 받아 들여 용서하는 힘과, 가장 심각한 불공정의 상황에서도 상냥할 수 있는 힘과, 무시무시한 위험에 직면하여서도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두려움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미움과 분노의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자질로서 부여하였다. 유란시아는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괴적인 전쟁들에 의한 참혹한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끔찍한 투쟁 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좌절을 체험하였다. 승리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참한 투쟁들로부터, 드높아진 명성과 함께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나사렛 예수와,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의 복음뿐이었다. 보다 나은 문명에 대한 비결은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주(主)의 가르침들, 상호적인 신뢰와 사랑의 선한 뜻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오순절이 있기까지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을 종교가 계시해 왔었으나;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이 여전히 하느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발견한 후에는 그의 안에 내주 하도록 그의 영을 보내신다는 장관(壯觀)이 세상을 비친다.

오순절에 최고조에 달하였던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는, 여인들은 오래된 종교들의 교의(敎義)에서는 영적 지위가 조금 있거나 또는 없었다. 오순절 이후로, 여자는 왕국의 형제신분 속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다. 영의 이 특별한 방문을 받아들이는 120명 중에는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 축복을 남성 신자들과 동등하게 누렸던 것이다. 종교적인 예배봉사의 사명활동을 더 이상 남자들만이 독점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바리새인은 “여자나 문둥병 환자 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였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여인들은 성별에 따른 모든 종교적인 차별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되었다. 오순절은 인종의 구별, 문화적인 차이들, 사회적 특권계급, 또는 성별에 따른 편견에 근간을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主)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해방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120명의 신자들 속에 있었으며, 그들도 이러한 일반 제자들의 일원으로서 쏟아 부어진 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 좋은 선물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의 땅에서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신분과 신성한 가문에 대한 모든 믿음을 종식시켰다.

오순절이 있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 가족

Hosts.” They now regarded the eternal Deity as the “God and Father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made that progress, at least, even if they did in some measure fail fully to grasp the truth that God is also the spiritual Father of every individual.

194:3.12 (2064.4) Pentecost endowed mortal man with the power to forgive personal injuries, to keep sweet in the midst of the gravest injustice, to remain unmoved in the face of appalling danger, and to challenge the evils of hate and anger by the fearless acts of love and forbearance. Urantia has passed through the ravages of great and destructive wars in its history. All participants in these terrible struggles met with defeat. There was but one victor; there was only one who came out of these embittered struggles with an enhanced reputation — that was Jesus of Nazareth and his gospel of overcoming evil with good. The secret of a better civilization is bound up in the Master’s teachings of the brotherhood of man, the good will of love and mutual trust.

194:3.13 (2065.1) Up to Pentecost, religion had revealed only man seeking for God; since Pentecost, man is still searching for God, but there shines out over the world the spectacle of God also seeking for man and sending his spirit to dwell within him when he has found him.

194:3.14 (2065.2) Before the teachings of Jesus which culminated in Pentecost, women had little or no spiritual standing in the tenets of the older religions. After Pentecost, in the brotherhood of the kingdom woman stood before God on an equality with man. Among the one hundred and twenty who received this special visitation of the spirit were many of the women disciples, and they shared these blessings equally with the men believers. No longer can man presume to monopolize the ministry of religious service. The Pharisee might go on thanking God that he was “not born a woman, a leper, or a gentile,” but among the followers of Jesus woman has been forever set free from all religious discriminations based on sex. Pentecost obliterated all religious discrimination founded on racial distinction, cultural differences, social caste, or sex prejudice. No wonder these believers in the new religion would cry ou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194:3.15 (2065.3) Both the mother and brother of Jesus were present among the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and as members of this common group of disciples, they also received the outpoured spirit. They received no more of the good gift than did their fellows. No special gift was bestowed upon the members of Jesus’ earthly family. Pentecost marked the end of special priesthoods and all belief in sacred families.

194:3.16 (2065.4) Before Pentecost the apostles had given up much for Jesus. They had sacrificed their

들, 친구들, 세상의 재물들과 지위를 희생하였다. 오순절에 그들은 자신을 하느님께 드렸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을 사람에게 주심—사람들 속에 내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그에 응답하였다. 자아를 버리고 영을 발견하는 이 체험은 하나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능적인 자아-복종과 무조건적인 헌신의 행동이었다.

오순절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부름이었다.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장소들에서도 일어났다. “믿는 자들의 무리 중에는 오직 한 마음과 혼이 있었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예수와 종교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히 통합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오순절은 개별존재들과 집단들과 국가들 그리고 인종들의 자아-주장을 줄여주도록 예정되었다. 긴장 속에서 그렇게 증가되어 주기적으로 파괴적인 전쟁들로 과열되어 느슨하게 되는 것은 이 자아-주장의 영이다. 인류는 영적 접근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우주적인 세상의 영향력이다.

진리의 영의 도래는 인간의 가슴을 정화시키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여 하느님의 뜻과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단 하나의 어떤 일생의 목적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자아분위의 물질적 영은 자아없음의 이 새로운 영적 증여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오순절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의 예수와 살아있는 체험의 신성한 아들이 되셨음을 가리킨다. 이 넘쳐나는 영의 기쁨은, 그것이 인간 일생 안에서 의식적으로 체험될 때, 건강을 위한 강장제(強壯劑), 마음에 대한 자극, 그리고 혼을 위한 부단한 힘이 된다.

기도로 영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개별적인 신자들을 특징짓는 접수성의 수용능력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일을 하였다. 기도가 증여의 풍성함이 되도록 신성한 가슴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지한 기도와 참된 경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조물주와 중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과 혼 속에, 그 신성한 증여들이 흐를 수 있게 하는, 보다 확대되고 깊어진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제 4 장. 그리스도인 교회의 시작

예수가 적에게 갑자기 체포되고 두 강도들 사이에서 그토록 신속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때,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완벽하게 사기가 꺾였었다. 체포되고, 묶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主)에 대한 기억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homes, families, friends, worldly goods, and positions. At Pentecost they gave themselves to God, and the Father and the Son responded by giving themselves to man — sending their spirits to live within men. This experience of losing self and finding the spirit was not one of emotion; it was an act of intelligent self-surrender and unreserved consecration.

194:3.17 (2065.5) Pentecost was the call to spiritual unity among gospel believers. When the spirit descended on the disciples at Jerusalem, the same thing happened in Philadelphia, Alexandria, and at all other places where true believers dwelt. It was literally true that “there was but one heart and soul among the multitude of the believers.” The religion of Jesus is the most powerful unifying influence the world has ever known.

194:3.18 (2065.6) Pentecost was designed to lessen the self-assertiveness of individuals, groups, nations, and races. It is this spirit of self-assertiveness which so increases in tension that it periodically breaks loose in destructive wars. Mankind can be unified only by the spiritual approach, and the Spirit of Truth is a world influence which is universal.

194:3.19 (2065.7) The coming of the Spirit of Truth purifies the human heart and leads the recipient to formulate a life purpose single to the will of God and the welfare of men. The material spirit of selfishness has been swallowed up in this new spiritual bestowal of selflessness. Pentecost, then and now, signifies that the Jesus of history has become the divine Son of living experience. The joy of this outpoured spirit, when it is consciously experienced in human life, is a tonic for health, a stimulus for mind, and an unfailing energy for the soul.

194:3.20 (2065.8) Prayer did not bring the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but it did have much to do with determining the capacity of receptivity which characterized the individual believers. Prayer does not move the divine heart to liberality of bestowal, but it does so often dig out larger and deeper channels wherein the divine bestowals may flow to the hearts and souls of those who thus remember to maintain unbroken communion with their Maker through sincere prayer and true worship.

4. BEGINNINGS OF THE CHRISTIAN CHURCH

194:4.1 (2066.1) When Jesus was so suddenly seized by his enemies and so quickly crucified between two thieves, his apostles and disciples were completely demoralized. The thought of the Master, arrested, bound, scourged, and crucified, was too much for even the apostles. They forgot

그의 가르침들과 경고들을 있었다. 정말로 그는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힘 있는 선지자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리라고 희망하는 그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때에, 그것의 절망으로부터 해방과 주(主)의 신성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함께 부활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번 그를 보았고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는 그들을 올리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였다. 그는 그들이 힘을 자질로서 부여받을 때까지—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로운 선생이 도래하였으며, 그들은 즉시 나아가서 새로운 힘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죽었으며 패배 당한 영도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대담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자들이었다. 주(主)는 이러한 복음 전파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신다; 하느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다; 그들의 혼 속에서 살아있는 현존이 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였으며 집에서 빵을 떼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한 가슴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영으로 충만하였으며 대담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군중들은 한 마음과 혼이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예수가 왕국 복음,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라고 임명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가졌다; 그들은 새로운 체험으로 흥분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의 메시지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경되었다: “기적과 이적으로서 사람인 하느님이 증명된. 나사렛 예수; 최종적인 조언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예지로 들어 올려 해방되신 이, 그를, 넘겨받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살해하였다. 하느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나타내신 것들을 그가 이렇게 성취하였다. 이 예수를 하느님이 소생시키셨다. 하느님은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하느님의 오른 손으로 드높여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의 약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가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바로 이것을 쏟아부어주셨다. 회개하라, 그것으로 너희 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명해왔던 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고, 만물의 소생의 시기까지 하늘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분, 예수님까지도, 보내실 수 있다.”

왕국 복음, 예수의 메시지는 갑자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일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였으며, 그가 시작했던 일을 완결하기 위하여 그가 이 세상으로 속히 돌아오시리라는

his teachings and his warnings. He might, indeed, have been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but he could hardly be the Messiah they had hoped would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194:4.2 (2066.2) Then comes the resurrection, with its deliverance from despair and the return of their faith in the Master's divinity. Again and again they see him and talk with him, and he takes them out on Olivet, where he bids them farewell and tells them he is going back to the Father. He has told them to tarry in Jerusalem until they are endowed with power — until the Spirit of Truth shall come. And on the day of Pentecost this new teacher comes, and they go out at once to preach their gospel with new power. They are the bold and courageous followers of a living Lord, not a dead and defeated leader. The Master lives in the hearts of these evangelists; God is not a doctrine in their minds; he has become a living presence in their souls.

194:4.3 (2066.3) “Day by day they continued steadfastly and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at home. They took their food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spirit, and they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nd the multitudes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said that aught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d was his own, and they had all things in common.”

194:4.4 (2066.4) What has happened to these men whom Jesus had ordained to go forth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They have a new gospel; they are on fire with a new experience; they are filled with a new spiritual energy. Their message has suddenly shifted to the proclamation of the risen Christ: “Jesus of Nazareth, a man God approved by mighty works and wonders; him, being delivered up by the determinate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did crucify and slay. The things which God foreshadowed by the mouth of all the prophets, he thus fulfilled. This Jesus did God raise up.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Being, by the right hand of God, exalte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spirit, he has poured forth this which you see and hear. Repent,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that the Father may send the Christ, who has been appointed for you, even Jesus, whom the heaven must receive until the times of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194:4.5 (2066.5)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message of Jesus, had been suddenly changed into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They now proclaimed the facts of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and preached the hope of his speedy

희망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신자들의 메시지는 그의 초림(初臨)에 대한 사실들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건인, 그의 재림(再臨)에 대한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급속도로 형성된 교회의 교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 그는 영을 주었다; 그는 다시 오고 계신다. 예수는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채웠으며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새로운 개념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은 주님 예수의 아버지시다.”라는 새로운 교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모든 개개의 개별존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오랜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형제로서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현실활동과 전례 없는 선한 뜻이 이러한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솟아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동료관계였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적인 왕국 속에서의 형제들의 동료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한 뜻은 예수의 증여 개념에서 발생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었으며, 필사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였으며, 예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매혹되는 그러한 새롭고도 독특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왕국 복음에 있는 살아있고 예증이 되는 해설을 바로 그 복음대신에 사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훌륭한 종교를 나타내었다.

틀림없이, 새로운 친교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찬례와 기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를 변함없이 계속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 이것은 삶에서와 같이 경배의 친교이었다. 그들은 법에 의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 의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하였다. 세상에서의 소유물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눈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특성이 아니었다;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결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이 남자와 여자들은 너무도 진지하고 자신 있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간의 경솔한 사랑에서의 선의적인 실험의 최종 결과는 비참하였고 슬픔을-남게 하였다. 수천 명의 착실한 신자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팔았고 그들의 자본이 되는 모든 재물들과 기타 생산적인 자산 일체를 처분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의 자산은 줄어들었고, “동등한 분배”는 끝이 나게 되었지만—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얼마 안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게 되었다.

return to this world to finish the work he began. Thus the message of the early believers had to do with preaching about the facts of his first coming and with teaching the hope of his second coming, an event which they deemed to be very near at hand.

194:4.6 (2067.1) Christ was about to become the creed of the rapidly forming church. Jesus lives; he died for men; he gave the spirit; he is coming again. Jesus filled all their thoughts and determined all their new concept of God and everything else. They were too much enthused over the new doctrine that “God is the Father of the Lord Jesus” to be concerned with the old message that “God is the loving Father of all men,” even of every single individual. True, a marvelous manifestation of brotherly love and unexampled good will did spring up in these early communities of believers. But it was a fellowship of believers in Jesus, not a fellowship of brothers in the family kingdom of the Father in heaven. Their good will arose from the love born of the concept of Jesus’ bestowal and not from the recognition of the brotherhood of mortal man. Nevertheless, they were filled with joy, and they lived such new and unique lives that all men were attracted to their teachings about Jesus. They made the great mistake of using the living and illustrativ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the kingdom for that gospel, but even that represented the greatest religion mankind had ever known.

194:4.7 (2067.2) Unmistakably, a new fellowship was arising in the world. “The multitude who believed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teaching and fellowship, 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They called each other brother and sister; they greeted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they ministered to the poor. It was a fellowship of living as well as of worship. They were not communal by decree but by the desire to share their goods with their fellow believers. They confidently expected that Jesus would return to complete the establishment of the Father’s kingdom during their generation. This spontaneous sharing of earthly possessions was not a direct feature of Jesus’ teaching; it came about because these men and women so sincerely and so confidently believed that he was to return any day to finish his work and to consummate the kingdom. But the final results of this well-meant experiment in thoughtless brotherly love were disastrous and sorrow-breeding. Thousands of earnest believers sold their property and disposed of all their capital goods and other productive assets.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dwindling resources of Christian “equal-sharing” came to an end — but the world did not. Very soon the believers at Antioch were taking up a collection to keep their fellow believers at Jerusalem from

이 무렵,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그것이 창설된 방법에 따라서 거행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훌륭한 교제 속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고 식사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지 거의 20년 전이었다. 신자들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세례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의 형제신분이었다.

이 예수의 교파는 신속하게 확장되었으며, 사두개인들이 다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법의 계율과 가르침들의 어떤 것도 충돌하는 면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교파의 영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하였고, 지도적인 랍비들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설득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였다: “이들의 조언과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면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가말리엘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예수에 관한 새 복음이 신속하게 퍼졌다.

그리하여 많은 숫자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로단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리스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그들이 초기에 개종시킨 사람들 중에는 스테반과 바나바도 있었다. 유능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의 관점과 많이 달랐으며, 유대식의 경배와 기타 제의적 실천 관행들을 잘 따르지 않았다. 이 그리스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형제신분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스테반과 그의 그리스인 연관-동료들은 더욱 더 예수가 가르쳤던 대로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은 곧 유대인 통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스테반은 대중 설교 가운데 하나에서, 그의 강연이 도중에 반감을 일으키는 부분에 이르자, 그들은 모든 공식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를 돌팔매질로 죽게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 거류민단의 영도자인 스테반은 새로운 신앙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에 특별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 신앙 속에서 한 교파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비(非)신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하겠다는 데에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 스테반이 죽은 후 한 달이 못되

starving.

194:4.8 (2067.3) In these days they celebrated the Lord's Supper after the manner of its establishment; that is, they assembled for a social meal of good fellowship and partook of the sacrament at the end of the meal.

194:4.9 (2067.4) At first they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it was almost twenty years before they began t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aptism was all that was required for admission into the fellowship of believers. They had no organization as yet; it was simply the Jesus brotherhood.

194:4.10 (2067.5) This Jesus sect was growing rapidly, and once more the Sadducees took notice of them. The Pharisees were little bothered about the situation, seeing that none of the teachings in any way interfered with the observance of the Jewish laws. But the Sadducees began to put the leaders of the Jesus sect in jail until they were prevailed upon to accept the counsel of one of the leading rabbis, Gamaliel, who advised them: “Refrain from these men and let them alone, for if this counsel or this work is of men, it will be overthrown; but if it is of God, you will not be able to overthrow them, lest haply you be found even to be fighting against God.” They decided to follow Gamaliel's counsel, and there ensued a time of peace and quiet in Jerusalem, during which the new gospel about Jesus spread rapidly.

194:4.11 (2068.1) And so all went well in Jerusalem until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Greeks in large numbers from Alexandria. Two of the pupils of Rodan arrived in Jerusalem and made many converts from among the Hellenists. Among their early converts were Stephen and Barnabas. These able Greeks did not so much have the Jewish viewpoint, and they did not so well conform to the Jewish mode of worship and other ceremonial practices. And it was the doings of these Greek believers that terminated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Jesus brotherhood and the Pharisees and Sadducees. Stephen and his Greek associate began to preach more as Jesus taught, and this brought them into immediate conflict with the Jewish rulers. In one of Stephen's public sermons, when he reached the objectionable part of the discourse, they dispensed with all formalities of trial and proceeded to stone him to death on the spot.

194:4.12 (2068.2) Stephen, the leader of the Greek colony of Jesus' believers in Jerusalem, thus became the first martyr to the new faith and the specific cause for the formal organization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This new crisis was met by the recognition that believers could not longer go on as a sect within the Jewish faith. They all agreed that they must separate themselves from unbelievers; and within one month from the death

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영도자관계 아래, 그리고 예수¹의 형제 야고보를 명목상의 우두머리로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에 관한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는 의욕적인 선생들은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 제국의 변방(邊方)들을 향하여 퍼져 나갔으며, 그 종교는 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최초의 선교사들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알렉산더가 행진하였던 길을 따라서, 가자와 티레로 통하는 길을 따라 안디옥으로 갔으며, 이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 후에는 로마를 지나 그 제국의 변두리 지방들 까지 퍼져 나갔다.

of Stephen the church at Jerusalem had been organized under the leadership of Peter, and James the brother of Jesus had been installed as its titular head.

194:4.13 (2068.3) And then broke out the new and relentless persecutions by the Jews, so that the active teachers of the new religion about Jesus, which subsequently at Antioch was called Christianity, went forth to the ends of the empire proclaiming Jesus. In carrying this message, before the time of Paul the leadership was in Greek hands; and these first missionaries, as also the later ones, followed the path of Alexander's march of former days, going by way of Gaza and Tyre to Antioch and then over Asia Minor to Macedonia, then on to Rome and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mpire.

제 195 편 오순절 이후

⇨ 194

유랜시아 책

196 ⇨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5 편 오순절 이후

섹션

소개

- 제 1 장. 그리스인들의 영향
- 제 2 장. 로마의 영향
- 제 3 장. 로마 제국 아래에서
- 제 4 장. 유럽의 암흑 시대
- 제 5 장. 현대의 문제점
- 제 6 장. 물질주의
- 제 7 장. 물질주의의 취약성
- 제 8 장. 세속적인 전체주의
- 제 9 장. 그리스도교의 문제
- 제 10 장. 미래

PAPER 195

AFTER PENTECOST

SECTIONS

Introduction

- 1. Influence of the Greeks
- 2. The Roman Influence
- 3. Under the Roman Empire
- 4. The European Dark Ages
- 5. The Modern Problem
- 6. Materialism
- 7. The Vulnerability of Materialism
- 8. Secular Totalitarianism
- 9. Christianity's Problem
- 10. The Future

소개

오순절 날 베드로 설교의 결과들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들에서, 대부분 사도들의 장래의 정책들을 정하고 그리고 계획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실제적 설립자였으며; 바울은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였고, 그리스인 신자들이 그것을 로마제국 전역에 퍼뜨렸다.

전통에 매이고 사제의 지배를 받는 히브리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예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승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후에 그리스도교가 됨)를 거부하였지만, 로마제국의 그 나머지는 확장되는 그리스도교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당시의 서방 문명은 지적이었고 전쟁에 치쳐 있었으며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우주 철학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회의적이었다. 서방 세계의 민족들은, 그리스 문화의 수혜자들, 위대한 과거의 존경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철학, 예술, 문학, 그리고 정치적 진보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들의 유산을 기대할 수

INTRODUCTION

195:0.1 (2069.1) THE results of Peter's preaching on the day of Pentecost were such as to decide the future policies, and to determine the plans, of the majority of the apostles in their effort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Peter was the real founder of the Christian church; Paul carried the Christian message to the gentiles, and the Greek believers carried it to the whole Roman Empire.

195:0.2 (2069.2) Although the tradition-bound and priest-ridden Hebrews, as a people, refused to accept either Jesus'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or Peter's and Paul's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Christ (subsequent Christianity), the rest of the Roman Empire was found to be receptive to the evolving Christian teachings. Western civilization was at this time intellectual, war weary, and thoroughly skeptical of all existing religions and universe philosophies. The peoples of the Western world, the beneficiaries of Greek culture, had a revered tradition of a great past.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을 만족시키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영적 갈망은 만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한 인간 사회의 무대 위로 예수의 가르침들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둘러싸여, 갑자기 밀려왔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그렇게 해서 이들 서방 사람들의 간절한 가슴에 제시되었다. 이 상황은 더 오래된 종교적 실천 관행과 세상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그리스도교식 해석 사이에 즉각적인 갈등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갈등은 새로운 것이나 옛 것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끝나야만 한다. 역사는 투쟁이 타협으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는 어느 한 민족이 한 두 세대 동안에 동화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포용시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가 사람들의 혼에게 제시하였던 것과 같은, 단순한 영적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찍부터 종교의식, 교육, 마술, 의술, 예술, 문학, 법, 정부, 도덕, 성(性)에 관한 규정, 일부다처제,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제도에 대해서까지 분명한 태도를 고집하였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마제국 전체와 모든 동방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으로서 그것은 당대의 사회적-도덕적 충동을 신속히 촉진시켰다. 예수의 이상(理想)들은, 그리스 철학에 의해 재해석하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회화됨에 따라서, 이제 서방 문명의 윤리 도덕, 종교 안에서 체현된 인간 종족의 전통에 대담하게 도전하였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는 오직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개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로마 문화의 최고점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새로운 질서, 삶의 목적과 실존의 목표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을 향하여 점점 더 돌아서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의 태생의 땅에서는 거의 실패한, 유대에서 기원한 이 새로운 메시지가 그토록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로마제국의 최상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철학적인 종교들과 신비 예배종파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되었다:

1. 조직. 바울은 위대한 조직가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그가 정한 걸음을 유지하였다.

2. 그리스도교가 속속들이 그리스화 되었다. 그리스 철학의 최고뿐 아니라 히브리 신학의 정수(精髓)까지 포용하였다.

3.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는, 그것은 새롭고도 위대한 이상(理想), 즉 예수의 생명 증여에서의 반향(反響)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그의 구원의 메시지에서서의 반영이 포함되었다.

They could contemplate the inheritance of great accomplishments in philosophy, art, literature, and political progress. But with all these achievements they had no soul-satisfying religion. Their spiritual longings remained unsatisfied.

195:0.3 (2069.3) Upon such a stage of human society the teachings of Jesus, embraced in the Christian message, were suddenly thrust. A new order of living was thus presented to the hungry hearts of these Western peoples. This situation meant immediate conflict between the older religious practices and the new Christianized version of Jesus' message to the world. Such a conflict must result in either decided victory for the new or for the old or in some degree of *compromise*. History shows that the struggle ended in compromise. Christianity presumed to embrace too much for any one people to assimilate in one or two generations. It was not a simple spiritual appeal, such as Jesus had presented to the souls of men; it early struck a decided attitude on religious rituals, education, magic, medicine, art, literature, law, government, morals, sex regulation, polygamy, and, in limited degree, even slavery. Christianity came not merely as a new religion — something all the Roman Empire and all the Orient were waiting for — but as a *new order of human society*. And as such a pretension it quickly precipitated the social-moral clash of the ages. The ideals of Jesus, as they were reinterpreted by Greek philosophy and socialized in Christianity, now boldly challenged the traditions of the human race embodied in the ethics, morality, and religions of Western civilization.

195:0.4 (2069.4) At first, Christianity won as converts only the lower social and economic strata. But by the beginning of the second century the very best of Greco-Roman culture was increasingly turning to this new order of Christian belief, this new concept of the purpose of living and the goal of existence.

195:0.5 (2070.1) How did this new message of Jewish origin, which had almost failed in the land of its birth, so quickly and effectively capture the very best minds of the Roman Empire? The triumph of Christianity over the philosophic religions and the mystery cults was due to:

195:0.6 (2070.2) 1. Organization. Paul was a great organizer and his successors kept up the pace he set.

195:0.7 (2070.3) 2. Christianity was thoroughly Hellenized. It embraced the best in Greek philosophy as well as the cream of Hebrew theology.

195:0.8 (2070.4) 3. But best of all, it contained a new and great *ideal*, the echo of the life bestowal of Jesus and the reflection of his message of salvation for all mankind.

4. 그리스도교 영도자들은 미트라교와 기꺼이 타협해서, 그 추종자들의 절반 이상이 안디옥 예배종파로 전향되도록 하였다.

5. 마찬가지로 그 다음과 그리고 그 후대의 그리스도교 영도자들도 이교도와 더욱 타협하여,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그 새로운 종교에 설득되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교도의 의례적인 허식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이교도들에게 바울 그리스도교의 그리스화된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교도들과 영민한 거래를 했다. 그들은 미트라 예배종파와 맺었던 것보다는 이교도들과 더 나은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의 타협에서도 그들은 극심한 부도덕은 물론 페르시아 신비 사상의 비난받을 만한 다른 수많은 실천 관행들을 성공적으로 제거시켰으므로써 정복자가 되고도 남았다

현명하였든 또는 현명치 못했든, 이 초기의 그리스도교 영도자들은 예수의 이상들을 자의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예수의 관념들을 구하려는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나게 성공했다. 그러나 오류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양보된 주(主)의 이상들은 여전히 그의 복음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충분한 힘을 세상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이 이교화로 인하여, 옛 계층은 의례적인 본성에서의 많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도권을 얻었다:

1. 인간의 도덕에서 새롭고도 엄청나게 높아진 음률을 부르짖었다
2. 하느님에 대해서 매우 확대되고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주었다.
3. 불멸의 희망이 인정받는 종교에서의 확신의 한 부분이 되었다.
4. 사람의 굶주린 혼에게 나사렛 예수가 주어졌다.

예수가 가르치셨던 위대한 진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초기의 타협 속에서 거의 유실되었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이교화된 그리스도교의 종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일생과 가르침을 지닌 바울파의 해석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이교화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속속들이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가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인들에게 많은, 너무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이집트에서 온 그리스인이 니케아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아주 두려움 없이 그의 증여에 대한 실제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이 집회에 도전하였고, 그 회의가 예수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감히 가리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그리스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였으며, 이 신자의 논리와 웅변술이 아니었으면, 아리우스의 신조가 승리했었을 것이다.

195:0.9 (2070.5) 4. The Christian leaders were willing to make such compromises with Mithraism that the better half of its adherents were won over to the Antioch cult.

195:0.10 (2070.6) 5. Likewise did the next and later generations of Christian leaders make such further compromises with paganism that even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was won to the new religion.

195:0.11 (2070.7) But the Christians made a shrewd bargain with the pagans in that they adopted the ritualistic pageantry of the pagan while compelling the pagan to accept the Hellenized version of Pauline Christianity. They made a better bargain with the pagans than they did with the Mithraic cult, but even in that earlier compromise they came off more than conquerors in that they succeeded in eliminating the gross immoralities and also numerous other reprehensible practices of the Persian mystery.

195:0.12 (2070.8) Wisely or unwisely, these early leaders of Christianity deliberately compromised the *ideals* of Jesus in an effort to save and further many of his *ideas*. And they were eminently successful. But mistake not! these compromised ideals of the Master are still latent in his gospel, and they will eventually assert their full power upon the world.

195:0.13 (2070.9) By this paganization of Christianity the old order won many minor victories of a ritualistic nature, but the Christians gained the ascendancy in that:

- 195:0.14 (2070.10) 1. A new and enormously higher note in human morals was struck.
- 195:0.15 (2070.11) 2. A new and greatly enlarged concept of God was given to the world.
- 195:0.16 (2070.12) 3. The hope of immortality became a part of the assurance of a recognized religion.
- 195:0.17 (2070.13) 4. Jesus of Nazareth was given to man's hungry soul.

195:0.18 (2070.14) Many of the great truths taught by Jesus were almost lost in these early compromises, but they yet slumber in this religion of paganized Christianity, which was in turn the Pauline version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the Son of Man. And Christianity, even before it was paganized, was first thoroughly Hellenized. Christianity owes much, very much, to the Greeks. It was a Greek, from Egypt, who so bravely stood up at Nicaea and so fearlessly challenged this assembly that it dared not so obscure the concept of the nature of Jesus that the real truth of his bestowal might have been in danger of being lost to the world. This Greek's name was Athanasius, and but for the eloquence and the logic of this believer, the persuasions of

Arius would have triumphed.

제 1 장. 그리스인들의 영향

그리스도교의 그리스화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파구스 의회에 출두하여 “미지의 하느님”에 관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사건 많은 그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곳, 아크로폴리스의 그늘 아래에서, 이 로마 시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갈릴리의 유대 땅에서 발생한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스 철학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많은 것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인 목적—둘 모두 개별존재의 창발에 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창발; 예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창발. 그리스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이성적인 자유주의를 가르쳤으며; 예수는 종교적 해방으로 인도하는 영적 해방주의를 가르쳤다. 이 두 관념들은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의 새롭고도 강력한 현장을 수립하였다;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해방에 대한 전조(前條)가 되었다.

그리스도교가 실존하게 되고 투쟁 관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1. 그리스인의 마음은 유대인들이라 해도 새롭고 좋은 관념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2.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기꺼이, 그러나 약삭빠르고 영리하게 타협하는 자들이었다; 신학을 다루는 날카로운 거래자들이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이자 십자가에 못박힌 이”에 대해 설교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있었다; 그들은 묻고 있었고, 관심을 가졌으며, 실제로 영적 진리를 찾고 있었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싸웠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포용하였다. 그리고 그 때에 그리스 문화의 일부인 것으로 수정된, 이 새로운 종교를 로마인들이 나중에 받아들이도록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美)을 존경하였고, 유대인들은 신성함을 숭배하였다. 그러나 두 민족 모두 진리를 사랑하였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인들은 종교를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들—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논의하였다.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종교에 헌신하면서, 반면 다른 분야의 생각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으며, 너무 진지하게 여겼다. 예수의 메시지의 내용에서 비추어지고 있듯이, 이 두 민족들의 여러 세기동안의 생각이 연합되어진 산물이 이제 인간 사회의 새로운 계층에, 어느 한도에서는, 인

1. INFLUENCE OF THE GREEKS

195:1.1 (2071.1) The Hellenization of Christianity started in earnest on that eventful day when the Apostle Paul stood before the council of the Areopagus in Athens and told the Athenians about “the Unknown God.” There, under the shadow of the Acropolis, this Roman citizen proclaimed to these Greeks his version of the new religion which had taken origin in the Jewish land of Galilee. And there was something strangely alike in Greek philosophy and many of the teachings of Jesus. They had a common goal — both aimed at the *emergence of the individual*. The Greek, at social and political emergence; Jesus, at moral and spiritual emergence. The Greek taught intellectual liberalism leading to political freedom; Jesus taught spiritual liberalism leading to religious liberty. These two ideas put together constituted a new and mighty charter for human freedom; they presaged man’s social, political, and spiritual liberty.

195:1.2 (2071.2) Christianity came into existence and triumphed over all contending religions primarily because of two things:

195:1.3 (2071.3) 1. The Greek mind was willing to borrow new and good ideas even from the Jews.

195:1.4 (2071.4) 2. Paul and his successors were willing but shrewd and sagacious compromisers; they were keen theologic traders.

195:1.5 (2071.5) At the time Paul stood up in Athens preaching “Christ and Him Crucified,” the Greeks were spiritually hungry; they were inquiring, interested, and actually looking for spiritual truth. Never forget that at first the Romans fought Christianity, while the Greeks embraced it, and that it was the Greeks who literally forced the Romans subsequently to accept this new religion, as then modified, as a part of Greek culture.

195:1.6 (2071.6) The Greek revered beauty, the Jew holiness, but both peoples loved truth. For centuries the Greek had seriously thought and earnestly debated about all human problems —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 — except religion. Few Greeks had paid much attention to religion; they did not take even their own religion very seriously. For centuries the Jews had neglected these other fields of thought while they devoted their minds to religion. They took their religion very seriously, too seriously. As illuminated by the content of Jesus’ message, the united product of the centuries of the thought of these two peoples now became the driving power of a new order of human society and, to a certain extent, of

간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 관행의 새로운 계층에 추진력이 되었다.

그리스 문명의 영향은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문명을 근동 지역에 퍼뜨렸을 때 이미 서부 지중해 지방에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스인들은 작은 도시국가 안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정치로 대단히 잘 행하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왕이 그리스를 대담하게 하나의 제국으로 확대시키면서, 아드리아 해로부터 인더스 강까지 뻗어 나갔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 확대의 과업과 충분하게 동등하였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관리-행정이나 종교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제국으로 확대된 이후에, 상당히 지엽적인 그들의 하느님들은 다소 괴상하게 보였다. 오래된 유대 종교의 그리스도교화된 해석본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스인들은 실제로 한분 하느님, 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하느님을 찾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그리스 제국은 지탱될 수 없었다. 그 문화적 지배는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서방으로부터 제국의 관리-행정을 위한 로마의 정치적 재능이 확보되고,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제국의 존엄을 갖춘 한 분 하느님의 종교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오래 견디어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에, 그리스 문화는 이미 최고 차원에 이르렀다; 그것의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학문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창조적인 재능은 쇠퇴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교 안에 부분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예수님의 관념과 이상이 그리스 문화와 학문의 구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의 문화적 선물을 가지고 동방에 진격하였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의 그리스도교 해석본으로 서방을 공략하였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보급된 서방 전역의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동방 해석본은,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좀더 진실이 유지되긴 하였지만, 완고한 아브너의 태도를 계속 따랐다. 결코 그리스화된 해석본처럼 진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이슬람 운동 안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제 2 장. 로마의 영향

로마인들은 추첨에 의한 정부 대신에 대의(代議) 정부를 채택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통제로 이어받았다.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서방 세계에 생소한 언어들과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용을 가져왔다는 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그리스도교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로마에서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초기 박해의 대부분은 단지 그들이 불운하게 설교에서 사용한 “왕국”이라는 용어에서 기인되었다. 로마인

a new order of human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195:1.7 (2071.7) The influence of Greek culture had already penetrated the lands of the western Mediterranean when Alexander spread Hellenistic civilization over the near-Eastern world. The Greeks did very well with their religion and their politics as long as they lived in small city-states, but when the Macedonian king dared to expand Greece into an empire, stretching from the Adriatic to the Indus, trouble began. The art and philosophy of Greece were fully equal to the task of imperial expansion, but not so with Greek political administration or religion. After the city-states of Greece had expanded into empire, their rather parochial gods seemed a little queer. The Greeks were really searching for *one God*, a greater and better God, when the Christianized version of the older Jewish religion came to them.

195:1.8 (2072.1) The Hellenistic Empire, as such, could not endure. Its cultural sway continued on, but it endured only after securing from the West the Roman political genius for empire administration and after obtaining from the East a religion whose one God possessed empire dignity.

195:1.9 (2072.2)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Hellenistic culture had already attained its highest levels; its retrogression had begun; learning was advancing but genius was declining. It was at this very time that the ideas and ideals of Jesus, which were partially embodied in Christianity, became a part of the salvage of Greek culture and learning.

195:1.10 (2072.3) Alexander had charged on the East with the cultural gift of the civilization of Greece; Paul assaulted the West with the Christian version of the gospel of Jesus. And wherever the Greek culture prevailed throughout the West, there Hellenized Christianity took root.

195:1.11 (2072.4) The Eastern version of the message of Jesus, notwithstanding that it remained more true to his teachings, continued to follow the uncompromising attitude of Abner. It never progressed as did the Hellenized version and was eventually lost in the Islamic movement.

2. THE ROMAN INFLUENCE

195:2.1 (2072.5) The Romans bodily took over Greek culture, putting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e place of government by lot. And presently this change favored Christianity in that Rome brought into the whole Western world a new tolerance for strange languages, peoples, and even religions.

195:2.2 (2072.6) Much of the early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Rome was due solely to their unfortunate use of the term “kingdom” in their preaching. The Romans were tolerant of any and

들은 어떤 그리고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의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개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오래로 인하여 기인되었던 이러한 초기의 박해가 끝나게 되자, 종교적 포교활동을 위한 마당이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적 관리-행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예술이나 종교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둘 모두에 이상스러울 만큼 관대하였다.

동양의 법은 엄격하고 독단적이었고; 그리스의 법은 유동적이고 예술적이었다; 로마의 법은 위엄이 있고 존중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로마의 교육은 전대미문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가르쳤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헌신적이고 숭고하게 삶을 바치는 개별존재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상에 대해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전념되었다. 그러나 이름에 걸 맞는 종교가 없었다. 그들의 그리스인 선생들이 그들에게 바울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아주 훌륭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한 견줄 데 없는 정직, 헌신 그리고 굳센 자아-통제는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고 성장하는 데에 이상적인 토양이었다.

이들 그리스-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하였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에 영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쉬웠다. 로마인들은 교회가 국가에 대한 경쟁자로서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에만 교회와 싸웠다. 로마는, 민족의 철학이나 토착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였으며, 그 도덕적인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도매방식으로 새로운 종교를 포용한 사람들의 영적 성장 안에서 개별적 체험이 된다는 의미로서는 도저히 로마의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사실 정말로, 많은 개별존재들이 모든 이 국가 종교의 표면 밑으로 파고들어왔고, 그들 혼의 영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화되고 이교화된 그리스도교의 잠재된 진리들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진 의미들의 실제 가치들을 발견하였다.

스토아 철학과 “자연과 양심”에 대한 그들의 역센 호소는, 적어도 지적인 감각에서, 모든 로마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잘 준비를 하였을 뿐이다. 로마인은 본성으로 그리고 훈련으로 법률가였다; 그들은 자연 법칙까지도 존경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자연법칙 안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식별해냈다. 키케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었던 민족은 바울의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무르익었다.

그리하여 로마화된 이들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 모두에게 그들의 종교를 철학화하고, 그것의 관념들을 조화-협동하고 그것의 이상들을 체계화시키고,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흐름에 종교적 실천 관행들을 적응시키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 경전이 그

all religions but very resentful of anything that savored of political rivalry. And so, when these early persecutions, due so largely to misunderstanding, died out, the field for religious propaganda was wide open. The Roman was interested in political administration; he cared little for either art or religion, but he was unusually tolerant of both.

195:2.3 (2072.7) Oriental law was stern and arbitrary; Greek law was fluid and artistic; Roman law was dignified and respect-breeding. Roman education bred an unheard-of and stolid loyalty. The early Romans were politically devoted and sublimely consecrated individuals. They were honest, zealous, and dedicated to their ideals, but without a religion worthy of the name. Small wonder that their Greek teachers were able to persuade them to accept Paul's Christianity.

195:2.4 (2072.8) And these Romans were a great people. They could govern the Occident because they did govern themselves. Such unparalleled honesty, devotion, and stalwart self-control was ideal soil for the reception and growth of Christianity.

195:2.5 (2072.9) It was easy for these Greco-Romans to become just as spiritually devoted to an institutional church as they were politically devoted to the state. The Romans fought the church only when they feared it as a competitor of the state. Rome, having little national philosophy or native culture, took over Greek culture for its own and boldly adopted Christ as its moral philosophy. Christianity became the moral culture of Rome but hardly its religion in the sense of being the individual experience in spiritual growth of those who embraced the new religion in such a wholesale manner. True, indeed, many individuals did penetrate beneath the surface of all this state religion and found for the nourishment of their souls the real values of the hidden meanings held within the latent truths of Hellenized and paganized Christianity.

195:2.6 (2073.1) The Stoic and his sturdy appeal to “nature and conscience” had only the better prepared all Rome to receive Christ, at least in an intellectual sense. The Roman was by nature and training a lawyer; he revered even the laws of nature. And now, in Christianity, he discerned in the laws of nature the laws of God. A people that could produce Cicero and Vergil were ripe for Paul's Hellenized Christianity.

195:2.7 (2073.2) And so did these Romanized Greeks force both Jews and Christians to philosophize their religion, to co-ordinate its ideas and systematize its ideals, to adapt religious practices to the existing current of life. And all this was enormously helped by translation of the Hebrew

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많은 민족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잠정적으로 불멸, 죽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생존되는 것을 믿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스의 문화적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승리의 상속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로 지중해 땅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서방 세계를 하나의 하느님을 위하여 준비시켰다. 유대교가 이 하느님을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유대교는 이들 로마화된 그리스인들에게 종교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필로가 그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하느님에 대한 더 좋은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들은 준비된 듯이 그것을 포용하였다,

제 3 장. 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통치가 강화된 후,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이 한 분 하느님, 위대한 종교 개념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위대한 제국은 있지만, 제국 경배와 영적 통일에 합당한 종교적 개념으로써 섬길 수 있는 하느님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제국을 받아들였고;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수용하였다. 로마는 정치적 통치의 합일을 제공하였고; 그리스는 문화와 학문의 합일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적 생각과 실천 관행의 합일을 제공하였다.

로마는 제국의 보편성으로서 민족주의 전통을 극복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종족들과 국가들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에서 스토아 철학자의 활기찬 가르침들과 신비주의 예배종파들의 구원의 약속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인기를 끌었다. 자신들의 언어 속에 “사심-없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영적으로 굶주린 민족에게, 그리스도교는 상쾌한 위로와 해방하는 힘으로 다가왔다.

그리스도교에 가장 위대한 힘을 준 것은 신자들이 봉사의 삶을 살아갔던 길과 그리고 더욱이 격렬한 박해의 초기에 신앙을 위하여 그들이 죽으며 갔던 길이였다.

그리스도의 어린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어린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 특히 여자 아기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널리 퍼진 실천 관행을 곧 종식시켰다.

그리스도교 경배의 초기 계획은 대부분이 유

scriptures into Greek and by the later recording of the New Testament in the Greek tongue.

^{195:2.8 (2073.3)} The Greeks, in contrast with the Jews and many other peoples, had long provisionally believed in immortality, some sort of survival after death, and since this was the very heart of Jesus' teaching, it was certain that Christianity would make a strong appeal to them.

^{195:2.9 (2073.4)} A succession of Greek-cultural and Roman-political victories had consolidated the Mediterranean lands into one empire, with one language and one culture, and had made the Western world ready for one God. Judaism provided this God, but Judaism was not acceptable as a religion to these Romanized Greeks. Philo helped some to mitigate their objections, but Christianity revealed to them an even better concept of one God, and they embraced it readily.

3. UNDER THE ROMAN EMPIRE

^{195:3.1 (2073.5)} After the consolidation of Roman political rule and after the dissemination of Christianity, the Christians found themselves with one God, a great religious concept, but without empire. The Greco-Romans found themselves with a great empire but without a God to serve as the suitable religious concept for empire worship and spiritual unification. The Christians accepted the empire; the empire adopted Christianity. The Roman provided a unity of political rule; the Greek, a unity of culture and learning; Christianity, a unity of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195:3.2 (2073.6)} Rome overcame the tradition of nationalism by imperial universalism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made it possible for different races and nations at least nominally to accept one religion.

^{195:3.3 (2073.7)} Christianity came into favor in Rome at a time when there was great contention between the vigorous teachings of the Stoics and the salvation promises of the mystery cults. Christianity came with refreshing comfort and liberating power to a spiritually hungry people whose language had no word for “unselfishness.”

^{195:3.4 (2073.8)} That which gave greatest power to Christianity was the way its believers lived lives of service and even the way they died for their faith during the earlier times of drastic persecution.

^{195:3.5 (2073.9)} The teaching regarding Christ's love for children soon put an end to the widespread practice of exposing children to death when they were not wanted, particularly girl babies.

^{195:3.6 (2074.1)} The early plan of Christian worship

대인 회당으로 넘겨졌으며, 미트라신 경배 의식에 의해 수정되었다; 나중에, 많은 이교도의 허식이 더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근간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교화된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좋은 종교가 서방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1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투쟁과 타협으로 뿌리를 내리고 급속히 퍼져나갈 준비를 스스로 하였었다. 그리스도교는 제국을 받아들이었다; 제국은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종교의 전파를 위하여 위대한 시기였다. 종교적인 해방이 있었고; 여행이 보편화되었으며 생각은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도덕적 타락을 막거나 또는 이미 확정되고 확장되고 있는 인종 퇴보를 보상하기에 그리스화된 그리스도교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영적 자극이 로마에 너무 늦게 임하였다. 이 새로운 종교는 제국화된 로마를 위한 문화적 필수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정부의 관련사에서 개별존재의 참여 부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부터, 과도한 온정주의, 과중한 세금과 극심한 징수 폐해, 금을 고갈시키는 레반트족과의 불균형한 거래, 오락의 광기, 로마인들의 규범화, 여성의 쇠퇴, 노예와 민족의 타락, 육체적인 전염병, 그리고 거의 영적 불모지에 이르도록 제도화된 국가 교회로부터, 위대한 제국을 구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초기의 학교들은 손상되지 않은 많은 예수의 가르침들을 지켜 나갔다. 판타에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친 후에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나다니엘을 따라 갔다.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수의 이상들 중 일부분이 희생된 반면에, 공평하게 말해서, 2세기 말 경에. 실천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의 모든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던 것은 기록되어야 한다. 승리는 완성에 가까이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제국이 나중에는 몰락하였지만 그리스도교가 생존을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그 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받아들여진 것이 그리스적 그리스도교 대신에 왕국 복음이었다면 로마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를 종종 추측해보곤 한다.

was largely taken over from the Jewish synagogue, modified by the Mithraic ritual; later on, much pagan pageantry was added. The backbone of the early Christian church consisted of Christianized Greek proselytes to Judaism.

195:3.7 (2074.2) The second century after Christ was the best time in all the world's history for a good religion to make progress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first century Christianity had prepared itself, by struggle and compromise, to take root and rapidly spread. Christianity adopted the emperor; later, he adopted Christianity. This was a great age for the spread of a new religion. There was religious liberty; travel was universal and thought was untrammelled.

195:3.8 (2074.3) The spiritual impetus of nominally accepting Hellenized Christianity came to Rome too late to prevent the well-started moral decline or to compensate for the already well-established and increasing racial deterioration. This new religion was a cultural necessity for imperial Rome, and it is exceedingly unfortunate that it did not become a means of spiritual salvation in a larger sense.

195:3.9 (2074.4) Even a good religion could not save a great empire from the sure results of lack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government, from overmuch paternalism, overtaxation and gross collection abuses, unbalanced trade with the Levant which drained away the gold, amusement madness, Roman standardization, the degradation of woman, slavery and race decadence, physical plagues, and a state church which became institutionalized nearly to the point of spiritual barrenness.

195:3.10 (2074.5) Conditions, however, were not so bad at Alexandria. The early schools continued to hold much of Jesus' teachings free from compromise. Pantaenus taught Clement and then went on to follow Nathaniel in proclaiming Christ in India. While some of the ideals of Jesus were sacrificed in the building of Christianity, it should in all fairness be recorded that, by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practically all the great minds of the Greco-Roman world had become Christian. The triumph was approaching completion.

195:3.11 (2074.6) And this Roman Empire lasted sufficiently long to insure the survival of Christianity even after the empire collapsed. But we have often conjectured what would have happened in Rome and in the world if it had been the gospel of the kingdom which had been accepted in the place of Greek Christianity.

제 4 장. 유럽의 암흑 시대

4. THE EUROPEAN DARK AGES

사회의 부속물이 되고 정치와 동맹자가 된 교

195:4.1 (2074.7) The church, being an adjunct to

회는 필연적으로 소위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지적 그리고 영적 쇠퇴를 함께 나눌 처지에 놓여졌다. 이 기간 동안, 종교는 점점 더 수도원과 같이 은둔적이 되고, 금욕적이고 법제화 되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교는 동면(冬眠)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두루, 이러한 무기력하고 세속화된 종교에 발맞추어서, 신비주의의 계속적인 흐름, 비실체성이며 철학적으로는 범신주의와 동족인 것과 거의 접하고 있는, 공상적인 영적 체험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세기들 동안, 실질적으로 종교는 다시 종교품이 되었다. 교회의 뒤덮는 권위와 전통 그리고 지시 앞에서 개별존재는 거의 없어졌다. 신성한 재판정에 계신 하느님들에게, 만일 효과적으로 호소하려면, 하느님들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므로, 특별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라성 같은 “성자” 집단의 창조라는 새로운 영적 위협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암흑기를 막아내기에는 무기력하였지만, 충분히 사회화 되고 이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 기간의 도덕적 어둠과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다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방 문명의 긴 밤이 지나는 동안 존속되었으며, 문예부흥이 밝아온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도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암흑기가 지남을 뒤 따라 일어난 그리스도교의 재건은 특별한 지적, 감정적, 그리고 인간 개인성의 영적 유형에 적합한 여러 분파들의 그리스도교적 가르침과 믿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교인 집단들, 다시 말해 종교적 계보들이 이 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직 잔존(殘存)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관한 종교로 뜻하지 않게 변환시킨 데서 기원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화, 이교화, 세속화, 제도화, 지적 퇴보, 영적 타락, 도덕적 동면, 위협하는 종말, 나중의 회생, 분열,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상대적(相對的) 부흥을 겪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족보는 선천적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람의 문명세계 속에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배권을 위한 지난날의 싸움으로 특징 지워지는 그러한 저들 사건 많은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상치 않은, 실존을 위한 투쟁과 마주하고 있다.

종교는 새로운 시대의 과학적 마음과 물질주의적 성향들의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거대한 투쟁 속에서, 예수의 종교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society and the ally of politics, was doomed to share in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decline of the so-called European “dark ages.” During this time, religion became more and more monasticized, asceticized, and legalized. In a spiritual sense, Christianity was hibernating. Throughout this period there existed, alongside this slumbering and secularized religion, a continuous stream of mysticism, a fantastic spiritual experience bordering on unreality and philosophically akin to pantheism.

195:4.2 (2074.8) During these dark and despairing centuries, religion became virtually secondhanded again. The individual was almost lost before the overshadowing authority, tradition, and dictation of the church. A new spiritual menace arose in the creation of a galaxy of “saints” who were assumed to have special influence at the divine courts, and who, therefore, if effectively appealed to, would be able to intercede in man’s behalf before the Gods.

195:4.3 (2075.1) But Christianity was sufficiently socialized and paganized that, while it was impotent to stay the oncoming dark ages, it was the better prepared to survive this long period of moral darkness and spiritual stagnation. And it did persist on through the long night of Western civilization and was still functioning as a moral influence in the world when the renaissance dawned. The rehabilitation of Christianity, following the passing of the dark ages, resulted in bringing into existence numerous sects of the Christian teachings, beliefs suited to special intellectual, emotional, and spiritual types of human personality. And many of these special Christian groups, or religious families, still persist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is presentation.

195:4.4 (2075.2) Christianity exhibits a history of having originated out of the unintended transformation of the religion of Jesus into a religion about Jesus. It further presents the history of having experienced Hellenization, paganization, secular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ntellectual deterioration, spiritual decadence, moral hibernation, threatened extinction, later rejuvenation, fragmentation, and more recent relative rehabilitation. Such a pedigree is indicative of inherent vitality and the possession of vast recuperative resources. And this same Christianity is now present in the civilized world of Occidental peoples and stands face to face with a struggle for existence which is even more ominous than those eventful crises which have characterized its past battles for dominance.

195:4.5 (2075.3) Religion is now confronted by the challenge of a new age of scientific minds and materialistic tendencies. In this gigantic struggle between the secular and the spiritual, the religion of Jesus will eventually triumph.

제 5 장. 현대의 문제점

20세기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이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를 인정시키고 그것의 물질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의 모든 노력 속에서 “먼저 하늘의 실체들을 찾는” 의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진리는 분할되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너무 심하게 분석될 때, 혼돈되고 그리고 오도(誤導)되기까지 한다. 살아있는 진리는, 물질적 과학의 사실이나 증제하는 기술의 영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체로서 그리고 한 덩어리 안에서 포용될 때에만 진리를 찾는 자들을 바르게 가르친다.

종교는 사람에게 그의 신성하고 영원한 운명의 계시이다.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영적 체험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의 다른 높은 생각의 형태와 언제까지나 구별되어야만 한다:

1. 물질적 실체의 사물들에 대한 사람의 논리적인 태도.
2. 추한 것과 대비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심미적인 깊은 이해.
3. 사람의 사회적 책무와 정치적 의무에서의 윤리적 인지(認知).
4. 종교적이거나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 도덕성에 대한 사람의 감각.

종교는 신앙과 신뢰 그리고 확신을 불러내는 가치들을 우주에서 발견하도록 예정되었다; 종교는 경배 속에서 절정을 이룬다. 종교는 마음에 의하여 발견된 상대적 가치들과는 대조가 되는 이러한 최극의 가치들을 혼을 위하여 발견한다. 그러한 초인간적 통찰력은 참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영적 실체들에 입각한 도덕이 없이 지속되는 사회체제는 중력 없는 태양계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더 유지될 수 없다.

육신으로 사는 한 번의 짧은 일생에서, 호기심을 채우려 하거나 또는 혼 안에서 솟구치는 모든 잠재된 모험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하지 말라. 인내하라! 저속하고 비열한 모험에 멋대로 돌진하는 탐닉에 유혹되지 마라. 너의 에너지에 마구를 채우고 너의 정열에 굴레를 씌워라; 진보적인 모험과 감동적인 발견의 끝없는 생애가 장엄하게 전개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침착하여라.

사람의 기원에 대한 혼란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 예수가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하였던 것과, 인간 개인성의 위대한 가치를 언제까지나 분명하게 한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가 보는 악의

5. THE MODERN PROBLEM

195:5.1 (2075.4) The twentieth century has brought new problems for Christianity and all other religions to solve. The higher a civilization climbs, the more necessitous becomes the duty to “seek first the realities of heaven” in all of man’s efforts to stabilize society and facilitate the solution of its material problems.

195:5.2 (2075.5) Truth often becomes confusing and even misleading when it is dismembered, segregated, isolated, and too much analyzed. Living truth teaches the truth seeker aright only when it is embraced in wholeness and as a living spiritual reality, not as a fact of material science or an inspiration of intervening art.

195:5.3 (2075.6) Religion is the revelation to man of his divine and eternal destiny. Religion is a purely personal and spiritual experience and must forever be distinguished from man’s other high forms of thought, such as:

195:5.4 (2075.7) 1. Man’s logical attitude toward the things of material reality.

195:5.5 (2075.8) 2. Man’s aesthetic appreciation of beauty contrasted with ugliness.

195:5.6 (2075.9) 3. Man’s ethical recognition of social obligations and political duty.

195:5.7 (2075.10) 4. Even man’s sense of human morality is not, in and of itself, religious.

195:5.8 (2075.11) Religion is designed to find those values in the universe which call forth faith, trust, and assurance; religion culminates in worship. Religion discovers for the soul those supreme values which are in contrast with the relative values discovered by the mind. Such superhuman insight can be had only through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195:5.9 (2075.12) A lasting social system without a morality predicated on spiritual realities can no more be maintained than could the solar system without gravity.

195:5.10 (2076.1) Do not try to satisfy the curiosity or gratify all the latent adventure surging within the soul in one short life in the flesh. Be patient! be not tempted to indulge in a lawless plunge into cheap and sordid adventure. Harness your energies and bridle your passions; be calm while you await the majestic unfolding of an endless career of progressive adventure and thrilling discovery.

195:5.11 (2076.2) In confusion over man’s origin, do not lose sight of his eternal destiny. Forget not that Jesus loved even little children, and that he forever made clear the great worth of human personality.

195:5.12 (2076.3) As you view the world, remember

검은 조각들은 궁극적 선의 하얀 바탕에 대비하여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그저 악의 검은 바탕에 대비하여 초라하게 나타나는 선의 흰 조각들만을 보지 마라.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전파해야 할 그렇게 많은 진리가 있는 때, 왜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세상에서 악에 그렇게 많이 유의해야만 하는가? 진리의 영적 가치들의 아름다움(美)은 악의 현상보다 더욱 즐겁고 고양하는 것이다.

종교에서, 현대 과학이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체험의 방법을 옹호하고 따르셨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의 인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 진리의 추구, 의무에 충실함, 그리고 신성한 선에 대한 경배를 통하여 이 혼의 통찰력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치 중에서, 사랑이 진정한 통찰력으로 인도하는 실제 안내자이다.

제 6 장. 물질주의

과학자들은 뜻하지 않게 인류를 물질주의적 공황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도덕의 은행에 생각 없는 외상을 달아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인간 체험의 은행은 광대한 영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위에 매겨져 있는 청구들을 대치할 수 있다, 오직 생각 없는 사람들만이 인간 종족의 영적 자산들에 대하여 공황상태가 되어간다. 물질주의적-세속적 공황이 끝나면,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국의 영적 은행은 “그의 이름으로” 그것에 구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소망 그리고 도덕적 보증을 지불해줄 것이다.

물질주의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명백한 충돌이 있던지 간에, 너희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주(主)의 가르침이 충분히 승리할 것을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실제 안에서, 참된 종교는 과학과의 어떤 논쟁에도 휘말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과학에 대해 간단하게 개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은 공감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종교 자체는 과학자와 최극으로 관계하고 있다.

지혜에서의 필연적인 해석과 종교적 체험에서의 영적 통찰력이 없는, 단순한 지식 추구는 결국에는 염세주의와 인간 절망으로 인도한다. 작은 지식은 정말로 혼란스럽게 한다.

이것을 쓰고 있는 시기에, 물질주의적 시대의 최악은 지나갔다. 보다 증진된 납득의 날이 이미 밝기 시작하였다. 과학적 세계의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에서 이제 더 이상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 아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전의 가르침들로 인하여 여전히 그 방

that the black patches of evil which you see are shown against a white background of ultimate good. You do not view merely white patches of good which show up miserably against a black background of evil.

195:5.13 (2076.4) When there is so much good truth to publish and proclaim, why should men dwell so much upon the evil in the world just because it appears to be a fact? The beauties of the spiritual values of truth are more pleasurable and uplifting than is the phenomenon of evil.

195:5.14 (2076.5) In religion, Jesus advocated and followed the method of experience, even as modern science pursues the technique of experiment. We find God through the leadings of spiritual insight, but we approach this insight of the soul through the love of the beautiful, the pursuit of truth, loyalty to duty, and the worship of divine goodness. But of all these values, love is the true guide to real insight.

6. MATERIALISM

195:6.1 (2076.6) Scientists have unintentionally precipitated mankind into a materialistic panic; they have started an unthinking run on the moral bank of the ages, but this bank of human experience has vast spiritual resources; it can stand the demands being made upon it. Only unthinking men become panicky about the spiritual assets of the human race. When the materialistic-secular panic is over, the religion of Jesus will not be found bankrupt. The spiritual bank of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paying out faith, hope, and moral security to all who draw upon it “in His name.”

195:6.2 (2076.7) No matter what the apparent conflict between materialism and the teachings of Jesus may be, you can rest assured that, in the ages to come, the teachings of the Master will fully triumph. In reality, true religion cannot become involved in any controversy with science; it is in no way concerned with material things. Religion is simply indifferent to, but sympathetic with, science, while it supremely concerns itself with the scientist.

195:6.3 (2076.8) The pursuit of mere knowledge, without the attendant interpretation of wisdom and the spiritual insight of religious experience, eventually leads to pessimism and human despair. A little knowledge is truly disconcerting.

195:6.4 (2076.9) At the time of this writing the worst of the materialistic age is over; the day of a better understanding is already beginning to dawn. The higher minds of the scientific world are no longer wholly materialistic in their philosophy, but the rank and file of the people still lean in that direction as a

향으로 기울어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사실주의 시대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일생에서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과학은 참 종교를—그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전환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다치지 않고 남겨 놓았다. 과학이 이룩한 모든 업적은, 일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유치한 환상을 깨뜨려버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볼 때, 과학은 양적 체험이며,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을 다룬다; 종교는 기원과 가치 그리고 목표를 다룬다. 원인들을 물리적 현상의 설명으로 돌리는 것은 궁극의 것들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끝에 가서는 과학자들을 처음 위대한 원인자—파라다이스의 우주 아버지—에게로 곧바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할 뿐이다.

기적의 시대로부터 기계의 시대로의 격렬한 이동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당황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기계론의 그릇된 철학의 영리함과 교묘함은 바로 그 기계론적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낸다. 물질주의자 마음의 숙명론적인 기만성은 우주가 체면대로이고 목적이 없는 에너지 현상이라는 그의 주장들이 그릇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증명하고 있다.

필경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사람들의 기계론적 자연주의와, 거리에 흔히 있는 사람의 생각 없는 세속주의는 둘 모두 오로지 사물에만 관심을 둔다; 그들에게는 모든 실재 가치, 신성한 규약, 그리고 영적 본성에서의 만족이 알맹이를 이루지 못하며, 신앙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현대생활에서의 커다란 문제들 중의 하나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영적 명상과 종교적인 헌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질주의는 사람을 혼이 없는 자동 장치로 축소하고, 그리고 그를 낭만도 없고 기계적인 우주의 수학 공식 안에서, 어떤 도움도 없는 위치를 찾아내고 있는, 단순한 산술적 상징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수학의 이 모든 광대한 우주는 주(主) 수학자가 없이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은 질량의 보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교는 사람들의 혼이 보존되는 것을 입증한다.—그것은 영적 실체들과 영원한 가치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체험에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물질주의적 사회학자들은 공동체를 조사하고, 곧바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발견했던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둔다. 1,900년 전에, 배움이 없는 갈릴리인은, 사람의 내적 체험에 대한 영적 기여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있는 예수를 조사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로마제국 전체를 뒤집어버렸었다.

그렇지만, 종교적 영도자들은 중세 시대의 나팔소리로 현대인들을 영적 전쟁터로 불러내려고 시도하는 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새로운 최첨단의 표어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만병통치약이라도 영적 진보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된 종교

result of former teachings. But this age of physical realism is only a passing episode in man's life on earth. Modern science has left true religion — the teachings of Jesus as translated in the lives of his believers — untouched. All science has done is to destroy the childlike illusions of the misinterpretations of life.

195:6.5 (2077.1) Science is a quantitative experience, religion a qualitative experience, as regards man's life on earth. Science deals with phenomena; religion, with origins, values, and goals. To assign causes as an explanation of physical phenomena is to confess ignorance of ultimates and in the end only leads the scientist straight back to the first great cause — the Universal Father of Paradise.

195:6.6 (2077.2) The violent swing from an age of miracles to an age of machines has proved altogether upsetting to man. The cleverness and dexterity of the false philosophies of mechanism belie their very mechanistic contentions. The fatalistic agility of the mind of a materialist forever disproves his assertions that the universe is a blind and purposeless energy phenomenon.

195:6.7 (2077.3) The mechanistic naturalism of some supposedly educated men and the thoughtless secularism of the man in the street are both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ings; they are barren of all real values, sanctions, and satisfactions of a spiritual nature, as well as being devoid of faith, hope, and eternal assurances. One of the great troubles with modern life is that man thinks he is too busy to find time for spiritual meditation and religious devotion.

195:6.8 (2077.4) Materialism reduces man to a soulless automaton and constitutes him merely an arithmetical symbol finding a helpless place in the mathematical formula of an unromantic and mechanistic universe. But whence comes all this vast universe of mathematics without a Master Mathematician? Science may expatiate on the conservation of matter, but religion validates the conservation of men's souls — it concerns their experience with spiritual realities and eternal values.

195:6.9 (2077.5) The materialistic sociologist of today surveys a community, makes a report thereon, and leaves the people as he found them. Nineteen hundred years ago, unlearned Galileans surveyed Jesus giving his life as a spiritual contribution to man's inner experience and then went out and turned the whole Roman Empire upside down.

195:6.10 (2077.6) But religious leaders are making a great mistake when they try to call modern man to spiritual battle with the trumpet blasts of the Middle Ages. Religion must provide itself with new and up-to-date slogans. Neither democracy nor any other political panacea will take the place of

들은 실체에서의 회피를 내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의 복음에서 필사 사람을 영적 진보의 영원한 실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로 선포하였다.

마음이 물질로부터 “창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에 우주가 단지 기능구조이고 마음이 물질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관찰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른 두개의 해석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진리(眞)와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에 대한 개념들은 물리학이나 화학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기계는 진리, 옳은 것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선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과학은 물리적이 수 있지만, 진리를 식별하는 과학자의 마음은 동시에 초(超)물질적이다. 물질은 진리를 모른다, 그것은 자비를 사랑하거나 영적 실체들로 즐길 수도 없다. 영적 깨우침에 기초되고 인간 체험에 뿌리를 둔 도덕적 신념들은 물리적 관찰들에 기초한 수학적 추론들과 같이 실제적이며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 근거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기계들이라면, 물질적인 우주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다. 개별존재성은 비(非)실존으로 될 것이며, 개인성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주들의 우주의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절대적 기능구조라는 사실은, 둘째근원이며 중심의 분별불가적인 의지의 현존 안에서, 결정자들이 조화우주에서의 배타적 법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만든다. 물질주의가 있다, 그러나 배타적이지 않다; 기능구조가 있다, 그러나 분별불가적이지 않다; 결정론이 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물질의 유한 우주는 마음과 영의 병합된 현존이 없다면, 결국에는 균일해지고 그리고 결정론으로 될 것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영향은 물질세계 속이라 해도 끊임없이 자발성을 주입한다.

실존의 어느 영역에서도 자유나 진취성은 영적 영향과 조화우주-마음 통제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것은 인간 체험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실재성의 정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단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너희를 발견하였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선(善)과 아름다움(美) 그리고 진리(眞)에 대한 진지한 추구는 하느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 속에 자유와 균일성이 둘 모두 실존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발견자는 발견할 자유가 있었다. 발견된 사물은 실제이고 명백히 균일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물로서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spiritual progress. False religions may represent an evasion of reality, but Jesus in his gospel introduced mortal man to the very entrance upon an eternal reality of spiritual progression.

195:6.11 (2077.7) To say that mind “emerged” from matter explains nothing. If the universe were merely a mechanism and mind were unapart from matter, we would never have two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any observed phenomenon. The concept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not inherent in either physics or chemistry. A machine cannot *know*, much less know truth, hunger for righteousness, and cherish goodness.

195:6.12 (2077.8) Science may be physical, but the mind of the truth-discerning scientist is at once supermaterial. Matter knows not truth, neither can it love mercy nor delight in spiritual realities. Moral convictions based on spiritual enlightenment and rooted in human experience are just as real and certain as mathematical deductions based on physical observations, but on another and higher level.

195:6.13 (2077.9) If men were only machines, they would react more or less uniformly to a material universe. Individuality, much less personality, would be nonexistent.

195:6.14 (2077.10) The fact of the absolute mechanism of Paradis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in the presence of the unqualified volition of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makes forever certain that determiners are not the exclusive law of the cosmos. Materialism is there, but it is not exclusive; mechanism is there, but it is not unqualified; determinism is there, but it is not alone.

195:6.15 (2078.1) The finite universe of matter would eventually become uniform and deterministic but for the combined presence of mind and spirit. The influence of the cosmic mind constantly injects spontaneity into even the material worlds.

195:6.16 (2078.2) Freedom or initiative in any realm of existenc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spiritual influence and cosmic-mind control; that is, in human experience, the degree of the actuality of doing “the Father’s will.” And so, when you once start out to find God, that is the conclusive proof that God has already found you.

195:6.17 (2078.3) The sincere pursuit of goodness, beauty, and truth leads to God. And every scientific discovery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both freedom and uniformity in the universe. The discoverer was free to make the discovery. The thing discovered is real and apparently uniform, or else it could not have become known as a *thing*.

제 7 장. 물질주의의 취약성

7. THE VULNERABILITY OF MATERIALISM

물질적-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능구조적인 기계론 우주와 같은 그렇게 취약한 이론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참된 종교에서의 개인적 체험의 광대한 영적 자원들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실들은 결코 실제적인 영적 신앙과 다투지 않는다; 이론들은 그럴 수 있다. 과학은 종교적인 신앙—영적 실체들과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타파하는데 헌신하는 것이 좋다.

종교가 사람을 위하여 영적으로 하는: 일생의 지평을 넓히고 그의 개인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과학은 그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해야 한다. 참된 과학은 참된 종교와 계속되는 대립관계를 가질 수 없다. “과학적인 방법”은 단지 물질적인 모험들과 물리적인 성취들을 재는 지적 척도이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지적으로 되는 것은, 영적 실체들과 종교적 체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다.

현대 기계론자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것이 단지 물질적 우주이고 사람은 단지 기계라면,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을 그런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계적-사람은 그러한 물질적 우주의 실존 사실을 결코 의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의 물질주의적 낙담과 절망은, 물질주의적 우주에 대한 이들 잘못된 판단과 자아-모순의 개념들을 형성한 바로 그 초(超)물질적 통찰력을 지닌, 과학자의 영이-내주된 마음의 사실에 대해 인지하는 것에 실패해 온 것이다.

영원과 무한의, 진리(眞)의,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에 대한 파라다이스 가치들은 시간과 공간 우주 현상의 사실들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가치들을 감지하고 분간하기 위해서는, 영으로-태어난 필사자 안에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영적 진보의 실체와 가치들은 단순히 물질적 마음에서의 영화롭게 꾸민 백일몽-어떤 “정신적인 구체적인 투사 활동”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는 하느님 영, 내주하고 있는 조절자의 영적 조짐이다. 그리고 “상대성”을 발견해 내는 어렵קות한 이해와 가벼운 접근으로 하느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한 너희 개념이 혼란을 겪도록 하지 말라. 그리고 자아-표현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너희의 그 모든 간절한 탐구가, 너의 실제적이고 더욱 나은 자아의 현시활동, 조절자-표현을 제공하려는 데에 실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

만약 이것이 단지 물질적 우주이었다면, 물질적 사람은 결코 그러한 배타적으로 물질적인 실존에서의 기계론적 성격 개념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우주의 기계론적 개념 그 자체가 마음의 비물질적 현상이다. 모든 마음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속속들이 물질적으로 제약받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195:7.1 (2078.4) How foolish it is for material-minded man to allow such vulnerable theories as those of a mechanistic universe to deprive him of the vast spiritual resources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true religion. Facts never quarrel with real spiritual faith; theories may. Better that science should be devoted to the destruction of superstition rather than attempting the overthrow of religious faith — human belief in spiritual realities and divine values.

195:7.2 (2078.5) Science should do for man materially what religion does for him spiritually: extend the horizon of life and enlarge his personality. True science can have no lasting quarrel with true religion. The “scientific method” is merely an intellectual yardstick wherewith to measure material adventures and physical achievements. But being material and wholly intellectual, it is utterly useless in the evaluation of spiritual realities and religious experiences.

195:7.3 (2078.6) The inconsistency of the modern mechanist is: If this were merely a material universe and man only a machine, such a man would be wholly unable to recognize himself as such a machine, and likewise would such a machine-man be wholly unconscious of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such a material universe. The materialistic dismay and despair of a mechanistic science has failed to recognize the fact of the spirit-indwelt mind of the scientist whose very supermaterial insight formulates these mistaken and self-contradictory concepts of a materialistic universe.

195:7.4 (2078.7) Paradise values of eternity and infini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concealed within the facts of the phenomena of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But it requires the eye of faith in a spirit-born mortal to detect and discern these spiritual values.

195:7.5 (2078.8) The realities and values of spiritual progress are not a “psychologic projection” — a mere glorified daydream of the material mind. Such things are the spiritual forecasts of the indwelling Adjuster, the spirit of God living in the mind of man. And let not your dabbings with the faintly glimpsed findings of “relativity” disturb your concepts of the eternity and infinity of God. And in all your solicitation concerning the necessity for self-expression do not make the mistake of failing to provide for Adjuster-expression, the manifestation of your real and better self.

195:7.6 (2079.1) If this were only a material universe, material man would never be able to arrive at the concept of the mechanistic character of such an exclusively material existence. This very mechanistic concept of the universe is in itself a nonmaterial phenomenon of mind, and all mind is of nonmaterial origin, no matter how thoroughly it

비물질적 기원에서 비롯한다.

필사 사람의 부분적으로 진화된 두뇌 정신적 기능구조는 일관성과 지혜가 철저히 자질로서 부여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만심은 종종 그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의 논리를 교묘하게 피해서 빠져나간다.

가장 비관론적인 물질주의자의 바로 그 비관주의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비관주의자의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둘 모두 사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에 대한 마음 의식 안에서의 개념 반응들이다. 만일 우주가 정말로 물질주의자들이 그것이 그러하다고 간주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인간 기계로서의 사람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모든 의식적 자각이 결여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으로 태어난 마음속에 가치들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없다면, 우주 물질주의의 사실과 우주 운행의 기계론적 현상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본성이나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

과학은 오직 물질들과 사실들만을 인지하고 취급하기 때문에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은 과학적이 될 수 없다. 철학은 필연적으로 초(超)과학적이다. 사람은 자연의 물질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자연의 물질적 차원들을 초월하는 현상이며, 그 속에서 마음의 통제 속성들과 영의 창조적 본질특성을 나타낸다.

사람이 기계론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지적 그리고 도덕적 자살을 저지르려고 사람의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우주가 오직 물질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단지 기계였다면,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기계화에 대한 가정을 세우도록 용기를 북돋는 과학이 없었을 것이다. 기계들은 측정하거나 구분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과학적 작업은 초(超)기계적 지위의 실존개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만약에 우주 실체가 단지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라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통찰력을 의식하기 위하여는, 우주 밖에 있어야만 하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만약에 사람이 단지 기계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이 사람이 그는 단지 기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는 안다고 주장하는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아-의식적인 평가의 체험은 단순한 기계의 속성이 결코 아니다. 자아-의식적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언하는 기계론자가 기계론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답이다. 만약에 물질주의가 사실이었다면, 자아-의식적인 기계론자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 어떤 자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먼저 그 자는 도덕적 개인이어야만

may appear to be materially conditioned and mechanistically controlled.

195:7.7 (2079.2) The partially evolved mental mechanism of mortal man is not overendowed with consistency and wisdom. Man's conceit often outruns his reason and eludes his logic.

195:7.8 (2079.3) The very pessimism of the most pessimistic materialist is, in and of itself, sufficient proof that the universe of the pessimist is not wholly material. Both optimism and pessimism are concept reactions in a mind conscious of *values* as well as of *facts*. If the universe were truly what the materialist regards it to be, man as a human machine would then be devoid of all conscious recognition of that very *fact*.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the concept of *values* within the spirit-born mind, the fact of universe materialism and the mechanistic phenomena of universe operation would be wholly unrecognized by man. One machine cannot be conscious of the nature or value of another machine.

195:7.9 (2079.4) A mechanistic philosophy of life and the universe cannot be scientific because science recognizes and deals only with materials and facts. Philosophy is inevitably superscientific. Man is a material fact of nature, but his *life* is a phenomenon which transcends the material levels of nature in that it exhibits the control attributes of mind and the creative qualities of spirit.

195:7.10 (2079.5) The sincere effort of man to become a mechanist represents the tragic phenomenon of that man's futile effort to commit intellectual and moral suicide. But he cannot do it.

195:7.11 (2079.6) If the universe were only material and man only a machine, there would be no science to embolden the scientist to postulate this mechanization of the universe. Machines cannot measure, classify, nor evaluate themselves. Such a scientific piece of work could be executed only by some entity of supermachine status.

195:7.12 (2079.7) If universe reality is only one vast machine, then man must be outside of the universe and apart from it in order to recognize such a *fact* and become conscious of the *insight* of such an *evaluation*.

195:7.13 (2079.8) If man is only a machine, by what technique does this man come to *believe* or claim to *know* that he is only a machine? The experience of self-conscious evaluation of one's self is never an attribute of a mere machine. A self-conscious and avowed mechanist is the best possible answer to mechanism. If materialism were a fact, there could be no self-conscious mechanist. It is also true that one must first be a moral person before one can perform immoral acts.

한다는 것이 또한 참말이다.

물질주의의 바로 그 주장이 그렇게 독단을 주장하도록 추정하는 마음의 초(超)물질적 의식을 암시한다. 기계론은 나빠질 수는 있지만, 결코 진보할 수는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을 꾸거나, 포부를 가지거나, 이상화하거나, 진리에 굶주리거나, 또는 올바르게 목마를 수 없다. 그것들은 다른 기계들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진보의 목표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고 분투하는 숭고한 과업을 선택하도록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자극하지 않는다. 기계들은 결코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는 영적이 아니다.

예술은 사람이 기계론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영적으로 불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예술은 필사자의 모른시아이며, 물질적인 것, 사람과 영적인 것, 사람사이에 개재(介在)되는 분야이다. 시(詩)는 물질적 실체에서 영적 가치로 달아나려는 노력이다.

높은 문명에서는, 예술은 과학을 인간화시키고, 반면에 그것은 진실한 종교—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들에 대한 통찰—에 의해 영성화된다. 예술은 인간과 실체의 시간-공간적인 평가를 묘사한다. 종교는 조화우주 가치들의 신성한 포용이다 그리고 영적 상승과 확대로 영원한 진보를 내포한다. 시간의 예술은 영원이 시간의 실체 그림자로서 반영하는 신성한 원형들의 영적 표준에 장님이 될 때에만 위험하다, 참된 예술은 일생에서의 물질적 사물의 효력적인 조종이다; 종교는 일생의 물질적인 사실들의 고상한 변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에 대한 스스로의 영적 평가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동장치가 자동화주의 철학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그리고 동료 자동장치들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과학자에게 정당한 인정이 고려되지 않으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무가치하다. 예술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예술의 깊은 감상은 참된 것이 아니다. 도덕주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도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보람이 없다. 철학자를 무시한다면, 철학의 인식이 덕성을 복돋우지 못한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가가 자신의 체험 속에서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려고 노력하는, 바로 종교가의 그 실제적인 체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들의 우주는 스스로 이신 이,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무한 하느님과 동떨어져서는 의의(意義)가 없다.

기계론자들—인본주의자들—은 물질적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상주의자들과 영성주의자들은 에너지 흐름줄기들의 명백하게 순수한 물질적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능과 활력으로 감히 그들의 노를 사용하려 한다.

195:7.14 (2079.9) The very claim of materialism implies a supermaterial consciousness of the mind which presumes to assert such dogmas. A mechanism might deteriorate, but it could never progress. Machines do not think, create, dream, aspire, idealize, hunger for truth, or thirst for righteousness. They do not motivate their lives with the passion to serve other machines and to choose as their goal of eternal progression the sublime task of finding God and striving to be like him. Machines are never intellectual, emotional, aesthetic, ethical, moral, or spiritual.

195:7.15 (2079.10) Art proves that man is not mechanistic, but it does not prove that he is spiritually immortal. Art is mortal morontia, the intervening field between man, the material, and man, the spiritual. Poetry is an effort to escape from material realities to spiritual values.

195:7.16 (2080.1) In a high civilization, art humanizes science, while in turn it is spiritualized by true religion — insight into spiritual and eternal values. Art represents the human and time-space evaluation of reality. Religion is the divine embrace of cosmic values and connotes eternal progression in spiritual ascension and expansion. The art of time is dangerous only when it becomes blind to the spirit standards of the divine patterns which eternity reflects as the reality shadows of time. True art is the effective manipulation of the material things of life; religion is the ennobling transformation of the material facts of life, and it never ceases in its spiritual evaluation of art.

195:7.17 (2080.2) How foolish to presume that an automaton could conceive a philosophy of automatism, and how ridiculous that it should presume to form such a concept of other and fellow automatons!

195:7.18 (2080.3) Any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universe is valueless unless it provides due recognition for the *scientist*. No appreciation of art is genuine unless it accords recognition to the *artist*. No evaluation of morals is worth while unless it includes the *moralist*. No recognition of philosophy is edifying if it ignores the *philosopher*, and religion cannot exist without the real experience of the *religionist* who, in and through this very experience, is seeking to find God and to know him. Likewise is the universe of universes without significance apart from the I AM, the infinite God who made it and unceasingly manages it.

195:7.19 (2080.4) Mechanists — humanists — tend to drift with the material currents. Idealists and spiritists *dare* to use their oars with intelligence and vigor in order to modify the apparently purely material course of the energy streams.

과학은 마음에서의 수학으로 살아간다; 음악은 감성에서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에서의 더 높고 영원한 선율에 대한 측정의 시간-공간 조화 안에 있는 혼의 울동이다. 종교적 체험은 인간의 일생 속에서 진실로 초(超)수학적인 그 무엇이다.

언어에서, 알파벳은 물질주의의 기능구조를 대표한다. 반면에 수많은 생각, 커다란 관념, 그리고 고상한 이상의—사랑과 미움에서의, 비겁함과 용기에서의—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은, 물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법칙에 의해 정의되고, 개인성의 의지가 주장하는 바에 의해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선천적인 상황에서의 자질에 따라 제한받는 범위 안에서, 마음의 행위들을 묘사한다.

우주는 과학자가 발견하는 그리고 그가 과학이라고 여기게 되는 법칙, 기능구조 그리고 균일성 같은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주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창조의 물질측면의 그 구조적 위상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수학적 사실을 분류해 내는 그러한 호기심이 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적이고, 병합하고 그리고 분간해 내는 그 과학자들과 같다. 또한 우주는 예술가의 예술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물질적 사물들의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분투하고, 꿈꾸며, 열망하고, 전진하는 예술가와 같다.

과학이 아니고,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의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의 실체를 감지한다. 예술이 아니고, 예술가가 물질적 실존과 영적 해방 사이에 개재하는 과도기 모몬시아 세계의 실존을 실증한다.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가 영원한 진보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영적 실체들과 신성한 가치들의 실존을 증명한다.

제 8 장. 세속적인 전체주의

그러나 물질주의와 기계론이 얼마큼 정복되어진 이후라 할지라도, 20세기 세속주의의 지독한 영향은, 수백만의 영문을 모르는 혼의 영적 체험들을 여전히 망치게 할 것이다.

현대 세속주의는 두 가지의 범세계적인 영향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는 소위 과학—무신론적 과학이라고 하는 19세기와 20세기의 편협하고도 하느님이 없다는 태도였다. 현대 세속주의의 어머니는 전체주의적 중세(中世)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 교회에 의한 서방 문명의 거의 완벽한 지배에 대항하여 일어난 불복으로 발단이 되었다.

이 계시의 때에,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의 생활

195:7.20 (2080.5) Science lives by the mathematics of the mind; music expresses the tempo of the emotions. Religion is the spiritual rhythm of the soul in time-space harmony with the higher and eternal melody measurements of Infinity. Religious experience is something in human life which is truly supermathematical.

195:7.21 (2080.6) In language, an alphabet represents the mechanism of materialism, while the words expressive of the meaning of a thousand thoughts, grand ideas, and noble ideals — of love and hate, of cowardice and courage — represent the performances of mind within the scope defined by both material and spiritual law, directed by the assertion of the will of personality, and limited by the inherent situational endowment.

195:7.22 (2080.7) The universe is not like the laws, mechanisms, and the uniformities which the scientist discovers, and which he comes to regard as science, but rather like the curious, thinking, choosing, creative, combining, and discriminating *scientist* who thus observes universe phenomena and classifies the mathematical facts inherent in the mechanistic phases of the material side of creation. Neither is the universe like the art of the artist, but rather like the striving, dreaming, aspiring, and advancing *artist* who seeks to transcend the world of material things in an effort to achieve a spiritual goal.

195:7.23 (2080.8) The scientist, not science, perceives the reality of an evolving and advancing universe of energy and matter. The artist, not art,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the transient morontia world intervening between material existence and spiritual liberty. The religionist, not religion, proves the existence of the spirit realities and divine values which are to be encountered in the progress of eternity.

8. SECULAR TOTALITARIANISM

195:8.1 (2081.1) But even after materialism and mechanism have been more or less vanquished, the devastating influence of twentieth-century secularism will still blight the spiritual experience of millions of unsuspecting souls.

195:8.2 (2081.2) Modern secularism has been fostered by two world-wide influences. The father of secularism was the narrow-minded and godless attitude of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so-called science — atheistic science. The mother of modern secularism was the totalitarian medieval Christian church. Secularism had its inception as a rising protest against the almost complete domin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by the institutionalized Christian church.

195:8.3 (2081.3) At the time of this revelation, the

에서 유행하는 지적 그리고 철학적 풍조는 단연코 세속적—인본주의적이다. 서방의 사고(思考)는 300년 동안 점차적으로 세속화되어 왔다. 종교는 점점 더 명목상의 영향, 주로 의식적인 행사가 되었다, 서방 문명에서의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의 대부분은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재적인 세속주의자이다.

사람을 시들게 하는 전체주의 교회의 지배의 손아귀에서 서방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데는, 커다란 힘, 강력한 영향이 필요하였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통제하는 속박을 깨트렸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차례로 그것이 현대인들의 가슴과 마음 위에 새롭고도 하느님 없는 유형의 지배력을 확립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압제와 독재적인 정치 형태는 과학적 물질주의와 철학적 세속주의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교회의 지배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자마자, 그것은 사람을 노예처럼 사슬에 묶어 전체주의 국가에 팔았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단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노예상태의 압제로 팔기 위하여 교회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고 있다.

물질주의는 하느님을 부인한다, 세속주의는 단순히 그를 무시한다; 적어도 그것이 초기의 태도였다. 더욱 최근에는, 세속주의는 그것이 한 때 종교의 전체주의적 속박에 저항하였던 그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이, 더욱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20세기의 세속주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인간 사회에서의 하느님이 없는 이 철학은 오직 불안, 증오, 불행, 전쟁, 그리고 범세계적 재난으로 이끌 것이다.

세속주의는 인류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잘 주목해라! 교회의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세속적인 반항의 은혜로운 수익들에 성급하게 굴복하지 말라. 서방 문명은 세속적인 반항의 결과로, 오늘날 많은 해방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 세속주의의 엄청난 오류는 이것이었다; 종교의 권위에 의해서 일생의 거의 전부가 통제되는 것에 대항하여 반항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횡포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후에, 세속주의자들은 하느님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항하도록, 때로는 잠잠하게 그리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성하며 계속 나아간 것이었다.

너희는 미국 산업주의의 놀라운 창조성과 그리고 서방 문명의 전례 없는 물질적 진보를 이룩하게 한 세속주의 반기(叛起)에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반기가 너무 멀리 갔고 그리고 하느님과 참된 종교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 전쟁과 국제적 불안정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또한 뒤 따라 발생되었다.

현대 세속주의 반기에서의 축복, 관용, 사회적 봉사, 민주적 정부, 그리고 시민의 해방을 누리기 위하여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과학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속주의자들이 참 종교에 반목을 일으킬 필요

prevailing intellectual and philosophical climate of both European and American life is decidedly secular — humanistic. For three hundred years Western thinking has been progressively secularized. Religion has become more and more a nominal influence, largely a ritualistic exercise. The majority of professed Christians of Western civilization are unwittingly actual secularists.

195:8.4 (2081.4) It required a great power, a mighty influence, to free the thinking and living of the Western peoples from the withering grasp of a totalitarian ecclesiastical domination. Secularism did break the bonds of church control, and now in turn it threatens to establish a new and godless type of mastery over the hearts and minds of modern man. The tyrannical and dictatorial political state is the direct offspring of scientific materialism and philosophic secularism. Secularism no sooner frees man from the domination of the institutionalized church than it sells him into slavish bondage to the totalitarian state. Secularism frees man from ecclesiastical slavery only to betray him into the tyranny of political and economic slavery.

195:8.5 (2081.5) Materialism denies God, secularism simply ignores him; at least that was the earlier attitude. More recently, secularism has assumed a more militant attitude, assuming to take the place of the religion whose totalitarian bondage it onetime resisted. Twentieth-century secularism tends to affirm that man does not need God. But beware! this godless philosophy of human society will lead only to unrest, animosity, unhappiness, war, and world-wide disaster.

195:8.6 (2081.6) Secularism can never bring peace to mankind. Nothing can take the place of God in human society. But mark you well! do not be quick to surrender the beneficent gains of the secular revolt from ecclesiastical totalitarianism. Western civilization today enjoys many liberties and satisfactions as a result of the secular revolt. The great mistake of secularism was this: In revolting against the almost total control of life by religious authority, and after attaining the liberation from such ecclesiastical tyranny, the secularists went on to institute a revolt against God himself, sometimes tacitly and sometimes openly.

195:8.7 (2081.7) To the secularistic revolt you owe the amazing creativity of American industrialism and the unprecedented material progress of Western civilization. And because the secularistic revolt went too far and lost sight of God and true religion, there also followed the unlooked-for harvest of world wars and international unsettledness.

195:8.8 (2081.8) It is not necessary to sacrifice faith in God in order to enjoy the blessings of the modern secularistic revolt: tolerance, social service, democratic government, and civil liberties.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secularists to antagonize

는 없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생활의 확장에서의 모든 이러한 최근 수익에서의 유일한 본원은 아니다. 20세기의 수익 이면에는 과학과 세속주의 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의 인지되지 않은 그리고 인정받지 않은 영적 작용들이 있다.

하느님 없이, 종교가 없이, 과학적인 세속주의는 결코 그 기세들을 조화-협동할 수 없고, 그것의 다양하고도 경쟁적인 관심들, 종족들, 그리고 민족주의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세속주의의 인간사회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주의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반목에서의 집대성-해체를 막는 가장 주된 응집력 있는 기세는 민족주의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세계평화의 가장 주된 장애물이다.

세속주의의 선천적인 결점은 정치와 힘을 위하여 윤리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형제신분을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

세속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낙관주의는 환상이다. 하느님 없이는, 자유나 해방도, 재산이나 풍요도 평화로 인도할 수 없다.

과학, 교육, 산업, 그리고 사회의 완벽한 세속화는 오직 재난으로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초반 1/3 기간 동안, 유란시아인 들은 그 때까지 전체 그리스도교 섭리시대 동안에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무시무시한 추수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 끔찍한 파괴는 이제부터 다가올 것이다.

제 9 장. 그리스도교의 문제

너희의 영적 유산, 물질주의적 그리고 세속시대의 불모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기를 통하여 흘러내리고 있는 진리의 강의 가치를 간과하지 말라. 지나간 시대들의 미신 신조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너희의 온갖 값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가 영원한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음을 확실히 하라. 그러나 인내하라! 현재의 미신 반기가 지나가면, 예수의 복음의 진리들이 새롭고 더 좋은 길을 비추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교화 되고 사회화된 그리스도교는 손상되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새롭게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주(主)의 일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모자란다는 것이 서글프다. 예수의 종교에 대한 새롭고도 보다 충분한 계시가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의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적 자연주의의 세계 지배를 타도하도록 운명되어있다. 유란시아는 이제 사회적 재조절, 도덕적 소생(蘇生), 그리고 영적 깨우침의 가장 놀

true religion in order to promote science and to advance education.

195:8.9 (2082.1) But secularism is not the sole parent of all these recent gains in the enlargement of living. Behind the gains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not only science and secularism but also the unrecognized and unacknowledged spiritual workings of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of Nazareth.

195:8.10 (2082.2) Without God, without religion, scientific secularism can never co-ordinate its forces, harmonize its divergent and rivalrous interests, races, and nationalisms. This secularistic human society, notwithstanding its unparalleled materialistic achievement, is slowly disintegrating. The chief cohesive force resisting this disintegration of antagonism is nationalism. And nationalism is the chief barrier to world peace.

195:8.11 (2082.3) The inherent weakness of secularism is that it discards ethics and religion for politics and power. You simply cannot establish the brotherhood of men while ignoring or denying the fatherhood of God.

195:8.12 (2082.4) Secular social and political optimism is an illusion. Without God, neither freedom and liberty, nor property and wealth will lead to peace.

195:8.13 (2082.5) The complete secularization of science, education, industry, and society can lead only to disaster. During the first third of the twentieth century Urantians killed more human beings than were killed during the whole of the Christian dispensation up to that tim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dire harvest of materialism and secularism; still more terrible destruction is yet to come.

9. CHRISTIANITY'S PROBLEM

195:9.1 (2082.6) Do not overlook the value of your spiritual heritage, the river of truth running down through the centuries, even to the barren times of a materialistic and secular age. In all your worthy efforts to rid yourselves of the superstitious creeds of past ages, make sure that you hold fast the eternal truth. But be patient! when the present superstition revolt is over, the truths of Jesus' gospel will persist gloriously to illuminate a new and better way.

195:9.2 (2082.7) But paganized and socialized Christianity stands in need of new contact with the uncompromised teachings of Jesus; it languishes for lack of a new vision of the Master's life on earth. A new and fuller revelation of the religion of Jesus is destined to conquer an empire of materialistic secularism and to overthrow a world sway of mechanistic naturalism. Urantia is now quivering on the very brink of one of its most

랍고 그리고 매혹적인 신(新)시대들 중의 하나의 바로 그 고비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들은, 비록 크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그들 탄생시절의 신비 예배종파들, 암흑기의 무지와 미신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20세기의 물질주의, 기계론, 그리고 세속주의에 대하여 서서히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큰 시험과 패배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기는 항상 위대한 계시가 내리는 시기이다.

종교는 새로운 영도자들,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가르침에만 오로지 용감하게 의존하려는 영적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이고 물질적 문제에 계속 바쁘게 일하면서 자신의 영적 임무에 게으름을 끈질기게 지속한다면, 영적 부흥은 오로지 사람의 영적 쇄신에만 헌신할 수 있는 예수의 종교에 대한 이들 새로운 선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영으로-태어난 이들 혼들은 세상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재조직에 필요한 영도자관계와 영감(靈感)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현대는 사실들과 모순되고, 그리고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의 최고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교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지금-현재의 왜곡되고 수치스럽게 타협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참되고 근본적인 기초들-예수의 실제 일생과 가르침들-을 다시 발견할 시간의 종이가 울리고 있다.

원시인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미신적 속박의 일생을 살았다. 현대의 문명인들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의 지배 아래에 붙잡힌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사색하는 사람은 종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해왔다. 강력하고 감동시키는 종교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위협할 때, 그는 변함없이 그것을 합리화, 전통화, 그리고 제도화하려고 시도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그에 대한 통제를 얻으려고 바라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계시 종교조차도 사람이-만든 사람이- 지배하는 것으로 된다. 현대의 남녀 지능존재들은 예수의 종교가 자신들에게-그리고 자신들을 가지고-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회피한다. 그리고 그런 모든 두려움에는 모두 그럴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예수의 종교는, 정말로 그 신자들을 지배하고 변환시키는데,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데에 자신들의 일생을 바치도록 요구하며, 삶의 에너지를 사람의 형제신분의 사심-없는 봉사에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적인 남자와 여자들은 필사 사람에게 제공된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에 대하여서도 결코 그러한 값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고 현혹시키는 이기심의 추구에 수반되는 비참한 실망감으로 사람이 충분히 환멸을 느끼게 되고, 뒤이어 형식화된 종교의 불모지를 발견하고 난 후에야, 오직 미몽에서 깨어나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고, 그는 왕국 복음, 나사렛 예수의 종교로 전심으

amazing and enthralling epochs of social readjustment, moral quickening, and spiritual enlightenment.

195:9.3 (2082.8) The teachings of Jesus, even though greatly modified, survived the mystery cults of their birthtime, the ignorance and superstition of the dark ages, and are even now slowly triumphing over the materialism, mechanism, and secularism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such times of great testing and threatened defeat are always times of great revelation.

195:9.4 (2082.9) Religion does need new leaders, spiritual men and women who will dare to depend solely on Jesus and his incomparable teachings. If Christianity persists in neglecting its spiritual mission while it continues to busy itself with social and material problems, the spiritual renaissance must await the coming of these new teachers of Jesus' religion who will be exclusively devoted to the spiritual regeneration of men. And then will these spirit-born souls quickly supply the leadership and inspiration requisite for the social, moral, economic, and political reorganization of the world.

195:9.5 (2083.1) The modern age will refuse to accept a relig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facts and out of harmony with its highest conceptio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The hour is striking for a rediscovery of the true and original foundations of present-day distorted and compromised Christianity — the real life and teachings of Jesus.

195:9.6 (2083.2) Primitive man lived a life of superstitious bondage to religious fear. Modern, civilized men dread the thought of falling under the dominance of strong religious convictions. Thinking man has always feared to be *held* by a religion. When a strong and moving religion threatens to dominate him, he invariably tries to rationalize, traditionalize, and institutionalize it, thereby hoping to gain control of it. By such procedure, even a revealed religion becomes man-made and man-dominated. Modern men and women of intelligence evade the religion of Jesus because of their fears of what it will do to them — and *with* them. And all such fears are well founded. The religion of Jesus does, indeed, dominate and transform its believers, demanding that men dedicate their lives to seeking for a knowledge of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and requiring that the energies of living be consecrated to the unselfish service of the brotherhood of man.

195:9.7 (2083.3) Selfish men and women simply will not pay such a price for even the greatest spiritual treasure ever offered mortal man. Only when man has become sufficiently disillusioned by the sorrowful disappointments attendant upon the foolish and deceptive pursuits of selfishness, and subsequent to the discovery of the barrenness of formalized religion, will he be disposed to turn

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욱 더 손을 거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교—20세기의 종교 중에서 최고—조차도 단지 예수에 관한 종교일 뿐이며, 더구나 스쳐간 사람의 손길을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있는 종교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정된 종교 교사들이 전해주는 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만일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던 원래 그대로의 예수를 볼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의 가르침들을, 손을 거치지 않은 원래 그대로를 알게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큰 깨우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사물을 묘사하는 말이 그것을 직접 보는 것만큼 전율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교리 말씀이 하나님의 현존을 아는 체험만큼 사람의 혼에 영감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기대하는 신앙은, 저 건너 세상들에서의 신성한 가치의 영원한 영적 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의 혼에 있는 소망의-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탐욕, 전쟁의 광기, 그리고 힘에 대한 강한 욕망의 도전 앞에서 그것의 이상들을 과감히 낮추어 버렸다;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사람에게 들어있는 최상의 것을 향하여 동물적 진화의 이 모든 유산들의 단계를 넘어서라고 그리고, 은혜로서, 참된 인간 운명의 도덕적 정상을 달성하라고 외치는, 순결하고 초월적인 영적 호소로서 서 있다.

그리스도교는 형식주의, 과대한 조직화, 주지(主知)주의, 그리고 다른 비(非)영적인 경향들에 의해 서서히 죽을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어지는 인류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변환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예수가 위임한 것과 같은, 그러한 활기찬 신자들의 형제신분이 아니다.

소위 그리스도교라는 공동체는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 관행은 물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 되어 버렸다. 현대 그리스도교의 물줄기는 많은 고대의 이교도의 늪과 야만적인 습지(濕地)의 물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배타적인 근원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갈릴리 고원은 물론, 마찬가지의 많은 낡은 문화적 분수 구멍들이 물을 이 지금-현재의 문화적 물줄기 안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제 10 장. 미래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한 봉사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이다. 세계는 주(主)를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들의 체험 안에서, 이 세상에 다시 사는 예수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부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익하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현대 문화는 예수의 일생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영적 세례를 받아야만 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의 복음의 새로운 납득의 빛이 비쳐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

wholeheartedly to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religion of Jesus of Nazareth.

195:9.8 (2083.4) The world needs more firsthand religion. Even Christianity — the best of the religions of the twentieth century — is not only a religion *about* Jesus, but it is so largely one which men experience secondhand. They take their religion wholly as handed down by their accepted religious teachers. What an awakening the world would experience if it could only see Jesus as he really lived on earth and know, firsthand, his life-giving teachings! Descriptive words of things beautiful cannot thrill like the sight thereof, neither can creedal words inspire men's souls like the experience of knowing the presence of God. But expectant faith will ever keep the hope-door of man's soul open for the entrance of the eternal spiritual realities of the divine values of the worlds beyond.

195:9.9 (2083.5) Christianity has dared to lower its ideals before the challenge of human greed, war-madness, and the lust for power; but the religion of Jesus stands as the unsullied and transcendent spiritual summons, calling to the best there is in man to rise above all these legacies of animal evolution and, by grace, attain the moral heights of true human destiny.

195:9.10 (2083.6) Christianity is threatened by slow death from formalism, overorganization, intellectualism, and other nonspiritual trends. The modern Christian church is not such a brotherhood of dynamic believers as Jesus commissioned continuously to effect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mankind.

195:9.11 (2083.7) So-called Christianity has become a social and cultural movement as well as a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The stream of modern Christianity drains many an ancient pagan swamp and many a barbarian morass; many olden cultural watersheds drain into this present-day cultural stream as well as the high Galilean tablelands which are supposed to be its exclusive source.

10. THE FUTURE

195:10.1 (2084.1) Christianity has indeed done a great service for this world, but what is now most needed is Jesus. The world needs to see Jesus living again on earth in the experience of spirit-born mortals who effectively reveal the Master to all men. It is futile to talk about a revival of primitive Christianity; you must go forward from where you find yourselves. Modern culture must become spiritually baptized with a new revelation of Jesus' life and illuminated with a new understanding of his gospel of eternal salvation. And when Jesus

렇게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 그가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정복자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것,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증진된 삶과 영감(靈感)의 흘러넘치는 근원이 되어야 한다. 종교는 개인적 체험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실체에 대한 발견으로 인하여 신성하게 되기 전에는 단지 하나의 고양된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예수와 일생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인간성과 신성, 소박함과 독특성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느님을-게시하는 그렇게 마음을 때리고 호소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하느님의 사람 형체로서의 그러한 초월적인 증여로부터 감히 교리를 만들어 내거나 영적 속박의 신학 체제들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지되어야만 한다. 예수 안에서 우주는, 사랑의 영이 시간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조건들을 이겼고 그리고 물리적 기원의 사실을 극복했던 필사 사람을 만들어내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 - 하느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그들은 우주 최종의 신성한 운명으로 영원한 개인성 체험의 충만하고 최종적인 달성에 다르는데 서로가 필요하다.

“하느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한 것 중에서, 그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사랑하시는 영이시라는 선언 다음으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다.

주(主)를 향한 승리하는 혼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 그의 형체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영적 인도아래 그를 필사 실존의 보다 높고 신성한 목표로 휘몰아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예시하는 것은, 사람과 그의 세계를 변환시키는 충동, 의무, 또는 집회에서 터져나오는 경주의 첫번째 걸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봉사와 해방을-사랑하는 헌신으로 그러한 두번째 걸음이다. 그리스도교는 비록 지금 첫걸음을 기꺼이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두번째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진실로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삶을 살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가르친 대로, 실제로 삶을 살고 사랑하고 예수의 공언된 추종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인류가 도덕적 암흑에서 풀려 죽고 비틀거린다.

왕국의 예수와 형제신분에서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새롭고도 변환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의 부름은, 육신에서의 예수님 동행자로서 이 땅위에서 거닐었던 날들이후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전율케 할 것이다.

하느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회적 체제나 정치 체제는 인간 문명의 증진에 어떤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도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됨으로써, 그것의 앞으로의 발전에 가장 큰 유익한 장애를 주고 있다; 특별히 이것은 동양에 관한 한 참말이다.

becomes thus lifted up, he will draw all men to himself. Jesus' disciples should be more than conquerors, even overflowing sources of inspiration and enhanced living to all men. Religion is only an exalted humanism until it is made divine by the discovery of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in personal experience.

195:10.2 (2084.2) The beauty and sublimity, the humanity and divinity, the simplicity and uniqueness, of Jesus' life on earth present such a striking and appealing picture of man-saving and God-revealing that the theologians and philosophers of all time should be effectively restrained from daring to form creeds or create theological systems of spiritual bondage out of such a transcendental bestowal of God in the form of man. In Jesus the universe produced a mortal man in whom the spirit of love triumphed over the material handicaps of time and overcame the fact of physical origin.

195:10.3 (2084.3) Ever bear in mind — God and men need each other. They are mutually necessary to the full and final attainment of eternal personality experience in the divine destiny of universe finality.

195:10.4 (2084.4)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was probably the greatest pronouncement Jesus ever made, next to the declaration that his Father is a living and loving spirit.

195:10.5 (2084.5) In winning souls for the Master, it is not the first mile of compulsion, duty, or convention that will transform man and his world, but rather the *second* mile of free service and liberty-loving devotion that betokens the Jesusonian reaching forth to grasp his brother in love and sweep him on under spiritual guidance toward the higher and divine goal of mortal existence. Christianity even now willingly goes the *first* mile, but mankind languishes and stumbles along in moral darkness because there are so few genuine second-milers — so few professed followers of Jesus who really live and love as he taught his disciples to live and love and serve.

195:10.6 (2084.6) The call to the adventure of building a new and transformed human society by means of the spiritual rebirth of Jesus' brotherhood of the kingdom should thrill all who believe in him as men have not been stirred since the days when they walked about on earth as his companions in the flesh.

195:10.7 (2084.7) No social system or political regime which denies the reality of God can contribute in any constructive and lasting manner to the advancement of human civilization. But Christianity, as it is subdivided and secularized today, presents the greatest single obstacle to its further advancement; especially is this true

교회중심주의는 당장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영,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영적 관계적-연합에서 사람의 형제신분 안에 있는 예수와의 신앙-동료들에서의 직접 가지는 체험과 양립될 수가 없다. 과거 업적의 전통들을 지키려는 칭찬할만한 욕망은 종종 지나치게 성장해버린 경배의 체계를 방어하도록 이끈다. 고대의 생각 체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선의의 욕망은, 현대인들의 확장하고 전진하는 영적 갈망들을 만족시키도록 고안된, 새롭고도 적절한 수단들과 방법들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저지한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크게, 그러나 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복음—나사렛 예수의 가르침들—의 즉각적인 전진에 장애물로 그렇게 서 있다.

복음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충성을 보이려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은, 그의 일생과 가르침들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기초하였던 것에 대해 잘못 가르침을 받아온 교회를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예수는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본성과 일치되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에서의 그의 필생의 일에 대한 실존적인 최고의 주창자로서 그것을 육성해 왔다.

[195:10.10] 만약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주(主)의 계획을 용감하게 지지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무관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영적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몰려들 것이며, 이 커다란 모험과 끝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195:10.11]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반하여 갈라진 집은 설 수 없다”는 자신의 표어들 중의 하나에 체현되어있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비(非)-그리스도교 세계는 파벌화된 그리스도교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교의 가능한 통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예수와의 형제신분—는 보이는 것이 아니며, 영적이며, 부득이한 확일성이 아니라, 합일로 특징지어진다. 확일성은 물질주의적 본성을 갖는 물리적 세계의 꼬리표이다. 영적 합일은 살아있는 예수와의 신앙 연합의 열매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느님 왕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리고 영적 형제신분의 진보를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신분은 제도화된 사회 조직과는 대조가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도록 운명되어 있다. 그것이 그러한 사회 조직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대신 들어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

[195:10.12] 그러나 20세기의 그리스도교조차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종족들의 하느님을-아는 사람들의 병합된 도덕적 진수(眞髓)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세상의 선(善)을 위한 가장 큰 힘들 중의 하나이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의 선천적 또는

concerning the Orient.

195:10.8 (2084.8) Ecclesiasticism is at once and forever incompatible with that living faith, growing spirit, and firsthand experience of the faith-comrades of Jesus in the brotherhood of man in the spiritual associa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praiseworthy desire to preserve traditions of past achievement often leads to the defense of outgrown systems of worship. The well-meant desire to foster ancient thought systems effectually prevents the sponsoring of new and adequate means and methods designed to satisfy the spiritual longings of the expanding and advancing minds of modern men. Likewise, the Christian churches of the twentieth century stand as great, but wholly unconscious, obstacles to the immediate advance of the real gospel — the teachings of Jesus of Nazareth.

195:10.9 (2085.1) Many earnest persons who would gladly yield loyalty to the Christ of the gospel find it very difficult enthusiastically to support a church which exhibits so little of the spirit of his life and teachings, and which they have been erroneously taught he founded. Jesus did not found the so-called Christian church, but he has, in every manner consistent with his nature, fostered it as the best existent exponent of his lifework on earth.

195:10.10 (2085.2) If the Christian church would only dare to espouse the Master's program, thousands of apparently indifferent youths would rush forward to enlist in such a spiritual undertaking, and they would not hesitate to go all the way through with this great adventure.

195:10.11 (2085.3) Christianity is seriously confronted with the doom embodied in one of its own slogans: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The non-Christian world will hardly capitulate to a sect-divided Christendom. The living Jesus is the only hope of a possible unification of Christianity. The true church — the Jesus brotherhood — is invisible, spiritual, and is characterized by *unity*, not necessarily by *uniformity*. Uniformity is the earmark of the physical world of mechanistic nature. Spiritual unity is the fruit of faith union with the living Jesus. The visible church should refuse longer to handicap the progress of the invisible and spiritual brotherhood of the kingdom of God. And this brotherhood is destined to become a *living organism* in contrast to an institutionalized social organization. It may well utilize such social organizations, but it must not be supplanted by them.

195:10.12 (2085.4) But the Christianity of even the twentieth century must not be despised. It is the product of the combined moral genius of the God-knowing men of many races during many ages, and it has truly been one of the greatest powers for good on earth, and therefore no man should lightly

후천적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는, 막강한 도덕적 감정에 반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195:10.13] 그러나 교회가 상업과 정치에 가담한 것은 평계를 댈 수 없다;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동맹은 주(主)에 대한 과립치한 배반이다. 그리고 진리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발생되는 신앙을 종종 감히 질식시키려고 하였으며, 비정통적인 옷을 입고 우연히 나타났던 진리의 전달자들을 박해하려고 하였던 것을 좀처럼 잊지 않을 것이다.

[195:10.14] 세상에 그러한 형태의 경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그러한 교회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영적으로 나태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신성한 전통의 오래되고 권위적인 종교를 갈망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 권위 없이 지내라고 하기에는 인간 진화와 영적 진보가 도무지 충분치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의 형제신분은, 만약에 그들이 오직 진실로 영-인도된 하느님의 아들이 기꺼이 되려한다면, 사회적 그리고 기질에서 다양한 등급들의 가족 집단들을 아마도 잘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이 이 형제신분에는, 그 어떤 분파적 경쟁이나 집단적 비통도, 또한 어떤 도덕적 우월성과 영적 무(無)오류성의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

[195:10.15] 그리스도교인들의 이러한 다양한 집단화(集團化)들은 서방 문명의 다양한 민족들 중에서 신자가 되고자 하는 다양한 다른 유형들을 수용하는 일에 기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교계의 분파는, 예수의 복음을 동양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제공한다. 이들 종족들은 점점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그리스도교와는 떨어져서, 많이 다른, 별개의 예수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195:10.16] 유란시아의 위대한 희망은, 지금-현재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추종자들의 수많은 가족을, 사랑 가득한 봉사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시킬, 바로 그러한 새롭고도 확대된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제시되는 예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가능성 안에 누워 있다.

[195:10.17] 세속적인 교육일지라도, 만약에 일생 설계와 성격 진보에 관여시키는 방법을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일에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려한다면, 이 위대한 영적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일생의 최극 목표, 잘 균형이 잡히고 장엄한 개인성의 계발을 육성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너무 지나친 자아-충족 대신에 도덕적 단련에 대한 가르침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종교는 필사자의 생활을 확대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영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195:10.18] 그리스도교는 즉흥으로 만들어진

regard it, notwithstanding its inherent and acquired defects. Christianity still contrives to move the minds of reflective men with mighty moral emotions.

195:10.13 (2085.5) But there is no excuse for the involvement of the church in commerce and politics; such unholy alliances are a flagrant betrayal of the Master. And the genuine lovers of truth will be slow to forget that this powerful institutionalized church has often dared to smother newborn faith and persecute truth bearers who chanced to appear in unorthodox raiment.

195:10.14 (2085.6) It is all too true that such a church would not have survived unless there had been men in the world who preferred such a style of worship. Many spiritually indolent souls crave an ancient and authoritative religion of ritual and sacred traditions. Human evolution and spiritual progress are hardly sufficient to enable all men to dispense with religious authority. And the invisible brotherhood of the kingdom may well include these family groups of various social and temperamental classes if they are only willing to become truly spirit-led sons of God. But in this brotherhood of Jesus there is no place for sectarian rivalry, group bitterness, nor assertions of moral superiority and spiritual infallibility.

195:10.15 (2086.1) These various groupings of Christians may serve to accommodate numerous different types of would-be believers among the various peoples of Western civilization, but such division of Christendom presents a grave weakness when it attempts to carry the gospel of Jesus to Oriental peoples. These races do not yet understand that there is a *religion of Jesus* separate, and somewhat apart, from Christianity, which has more and more become a *religion about Jesus*.

195:10.16 (2086.2) The great hope of Urantia lies in the possibility of a new revelation of Jesus with a new and enlarged presentation of his saving message which would spiritually unite in loving service the numerous families of his present-day professed followers.

195:10.17 (2086.3) Even secular education could help in this great spiritual renaissance if it w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work of teaching youth how to engage in life planning and character progression. The purpose of all education should be to foster and further the supreme purpose of life, the development of a majestic and well-balanced personality. There is great need for the teaching of moral discipline in the place of so much self-gratification. Upon such a foundation religion may contribute its spiritual incentive to the enlargement and enrichment of mortal life, even to the security and enhancement of life eternal.

195:10.18 (2086.4) Christianity is an extemporized

종교이며, 따라서 저속 기어로 운전되어야만 한다. 고속 기어의 영적 행위들은 새로운 계시와 그리고 예수의 실제 종교를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못박힌 목수의 평범한 제자들이 저들 가르침들을 시작하여 300년 동안 로마세계를 정복하고 그 후에 로마를 타도한 야만인들에게도 승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때, 위대한 종교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복—흡수하였고 드높였음—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교 종교가 신비종파와 이교도의 과도한 투여의 결과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수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다시 일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전체 서방 세계를 다시 정복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불멸화하기에 충분할 만큼 예수의 가르침들을 간직하고 있다.

[195:10.19]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가르침들을 더 많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새롭고도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현대인들을 돕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10.20] 그리스도교는 모든 세계의 마음 속에, 사회 체계, 산업 생활. 그리고 서방 문명의 도덕적 표준의 일부로서 정체성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부지불식간에, 이상주의가 없는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 얻는 재물, 억제되지 않는 쾌락, 성격이 없는 지식, 양심이 없는 권력 그리고 도덕성이 없는 산업을 묵인하고 있는 범죄 밑에서 비틀대는, 그러한 사회를 후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195:10.21] 현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자신이 그렇게 썩썩하게 찬양하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거기에서 나사렛의 예수로부터 필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하느님의 아버지신분과 사람의 형제신분에 대한 살아있는 복음—을 새롭게 배우면서, 서방 문명의 사회 체계와 산업 정책을 후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religion, and therefore must it operate in low gear. High-gear spiritual performances must await the new revelation and the more general acceptance of the real religion of Jesus. But Christianity is a mighty religion, seeing that the commonplace disciples of a crucified carpenter set in motion those teachings which conquered the Roman world in three hundred years and then went on to triumph over the barbarians who overthrew Rome. This same Christianity conquered — absorbed and exalted — the whole stream of Hebrew theology and Greek philosophy. And then, when this Christian religion became comatose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as a result of an overdose of mysteries and paganism, it resurrected itself and virtually reconquered the whole Western world. Christianity contains enough of Jesus' teachings to immortalize it.

195:10.19 (2086.5) If Christianity could only grasp more of Jesus' teachings, it could do so much more in helping modern man to solve his new and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195:10.20 (2086.6) Christianity suffers under a great handicap because it has become identified in the minds of all the world as a part of the social system, the industrial life, and the moral standards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us has Christianity unwittingly seemed to sponsor a society which staggers under the guilt of tolerating science without idealism, politics without principles, wealth without work, pleasure without restraint, knowledge without character, power without conscience, and industry without morality.

195:10.21 (2086.7) The hope of modern Christianity is that it should cease to sponsor the social systems and industrial policies of Western civilization while it humbly bows itself before the cross it so valiantly extols, there to learn anew from Jesus of Nazareth the greatest truths mortal man can ever hear — the living gospel of the fatherhood of God and the brotherhood of man.

제 196 편 예수와 신앙

▷ 195

유랜시아 책

부 IV.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 196 편 예수와 신앙

섹션

소개

제 1 장. 예수—사람

제 2 장. 예수의 종교

제 3 장. 종교의 최극위

PAPER 196

THE FAITH OF JESUS

SECTIONS

Introduction

1. Jesus — The Man

2. The Religion of Jesus

3. The Supremacy of Religion

소개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귀하고 진심으로의 신앙을 향유(享有)하였다. 그는 필사 실존의 일반적인 부침(浮沈)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내재(內在)하는 조절자의 활동으로 태어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 또는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의(正義)롭고 위대한 분일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살아 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치하였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성취하고 또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이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숭고한 체험의 관념으로 고양시키고 높였다.

예수는 분투하는 혼이 우주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적의에 차고 죄로 가득 찬 세상과의 사생결투에서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에 단지 어려움 속에서 위로로 위협받는 절망에서 위안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신앙은 단지 즐겁지 못한 현실이나 혹은 삶의 슬픔들을 위한 환상(幻相)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 실

INTRODUCTION

196:0.1 (2087.1) JESUS enjoyed a sublime and wholehearted faith in God. He experienced the ordinary ups and downs of mortal existence, but he never religiously doubted the certainty of God's watchcare and guidance. His faith was the outgrowth of the insight born of the activity of the divine presence, his indwelling Adjuster. His faith was neither traditional nor merely intellectual; it was wholly personal and purely spiritual.

196:0.2 (2087.2) The human Jesus saw God as being holy, just, and great, as well as being true, beautiful, and good. All these attributes of divinity he focused in his mind as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Jesus' God wa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 living and loving Father in heaven.” The concept of God as a Father was not original with Jesus, but he exalted and elevated the idea into a sublime experience by achieving a new revelation of God and by proclaiming that every mortal creature is a child of this Father of love, a son of God.

196:0.3 (2087.3) Jesus did not cling to faith in God as would a struggling soul at war with the universe and at death grips with a hostile and sinful world; he did not resort to faith merely as a consolation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or as a comfort in threatened despair; faith was not just an illusory compensation for the unpleasant realities and the

존의 자연적 어려움과 현세적인 모순들에 바로 직면하여, 그는 최극의 평온과 하느님에 대한 명백한 신뢰를 체험하였으며 그리고, 신앙으로 하늘에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감격을 느꼈다. 그리고 이 승리한 신앙은 실제 영달성의 살아있는 체험이었다. 인간 체험의 가치들에 예수의 커다란 공헌은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관하여 많은 새로운 관념들을 계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하느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장엄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세상들 어디에서, 어느 한 필사자의 일생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 속에서처럼 하느님이 그토록 살아있는 실체가 되신 적은 없었다.

주(主)의 유란시아 일생 속에서, 지역 창조의 이 세계와 다른 모든 세계들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종교, 우주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에 근거하고, 순수한 개인적 체험의 최극 권위에 의해 전적으로 확인된 종교를 발견한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知的)인 반영 이상이었으며, 그리고 신비한 명상이 아니었다.

신학은 신앙을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하고, 독단적으로 단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존경이 아니었고, 그가 경건한 신조로 가졌던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신념이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모든 것을-감싸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의심들도 절대적으로 날려버리고, 상충되는 모든 욕망을 실질적으로 파괴하였다. 아무 것도 이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이 영적 정박지(碇泊地)로부터 그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명백한 패배에 직면하거나 또는 실망과 위협적인 절망의 심한 고통 속에서조차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적 불굴성(不屈性)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신성한 현존 안에 차분하게 서 있었다. 예수는 위축되지 않는 신앙 소유의 활력을 불어넣는 확신을 향유하였으며, 그리고 일생의 시험적인 각각의 환경들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충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신앙은 치욕스러운 죽음의 압도하는 위협에까지도 꺾여지지 않았다.

종교의 특질에는, 강력한 영적 신앙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참한 광신, 종교적 자기의 과장으로 직접 이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영적 고양(高揚)은 하느님과 그의 개인적 체험의 전혀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혼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천적 일생에서, 그의 비범한 신앙이나 영 달성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예수의 온몸을-불태우고 그리고 불굴의 영적 신앙은 절대로 광신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적 그리고 평범한 사회적, 경제적, 그

sorrows of living. In the very face of all the natural difficulties and the temporal contradictions of mortal existence, he experienced the tranquillity of supreme and unquestioned trust in God and felt the tremendous thrill of living, by faith, in the very presence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is triumphant faith was a living experience of actual spirit attainment. Jesus' great contribution to the values of human experience was not that he revealed so many new ideas about the Father in heaven, but rather that he so magnificently and humanly demonstrated a new and higher type of *living faith in God*. Never on all the worlds of this universe, in the life of any one mortal, did God ever become such a *living reality* as in the human experience of Jesus of Nazareth.

196:0.4 (2087.4) In the Master's life on Urantia, this and all other worlds of the local creation discover a new and higher type of religion, religion based on personal spiritual relations with the Universal Father and wholly validated by the supreme authority of genuine personal experience. This living faith of Jesus was more than an intellectual reflection, and it was not a mystic meditation.

196:0.5 (2087.5) Theology may fix, formulate, define, and dogmatize faith, but in the human life of Jesus faith was personal, living, original, spontaneous, and purely spiritual. This faith was not reverence for tradition nor a mere intellectual belief which he held as a sacred creed, but rather a sublime experience and a profound conviction which *securely held him*. His faith was so real and all-encompassing that it absolutely swept away any spiritual doubts and effectively destroyed every conflicting desire. Nothing was able to tear him away from the spiritual anchorage of this fervent, sublime, and undaunted faith. Even in the face of apparent defeat or in the throes of disappointment and threatening despair, he calmly stood in the divine presence free from fear and fully conscious of spiritual invincibility. Jesus enjoyed the invigorating assurance of the possession of unflinching faith, and in each of life's trying situations he unfailingly exhibited an unquestioning loyalty to the Father's will. And this superb faith was undaunted even by the cruel and crushing threat of an ignominious death.

196:0.6 (2088.1) In a religious genius, strong spiritual faith so many times leads directly to disastrous fanaticism, to exaggeration of the religious ego, but it was not so with Jesus. He was not unfavorably affected in his practical life by his extraordinary faith and spirit attainment because this spiritual exaltation was a wholly unconscious and spontaneous soul expression of his personal experience with God.

196:0.7 (2088.2) The all-consuming and indomitable spiritual faith of Jesus never became fanatical, for it never attempted to run away with his well-

리고 도덕적 일생의 환경에서의 비례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잘-균형 잡힌 지적 판단들을 가지고 결코 벗어나려고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눈부시게 통합된 인간 개인성이었다; 그는 완전하게 자질로서 부여된 신성한 존재였다; 그는 또한 이 땅에서 단일 개인성으로 기능하는 병합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서 장엄하게 조화-협동되었다. 주(主)는 혼의 신앙과 성숙되는 체험의 지혜로운-평가를 항상 조화-협동시켰다. 개인적 신앙과 영적 소망 그리고 도덕적 헌신은 항상, 실체에 대한 예리한 실현과 모든 인간적 충성들—개인적 명예, 가족적 사랑, 종교적 의무, 사회적 의무,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에서의 성스러움과의 조화로운 관계적-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비할 데 없는 종교적 합일 안에 상관되어 있다.

예수의 신앙은 모든 영적 가치들을 하느님의 왕국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너희는 먼저 하늘의 왕국을 찾으라.”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발전되고 이상적인 왕국의 동료관계로 “하느님의 뜻”의 성취와 달성을 보았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이었다. 이와 같이 왕국이 하느님의 뜻을 포함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는 그것의 실현에 원인이 되도록, 놀랄만한 자아-잊어버림과 끝없는 열정으로 자신을 헌신하였다. 그러나 모든 그의 극심한 임무와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일생을 통하여 광신자들의 격분이나 종교적 이기주의자들의 피상적인 공허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주(主)의 일생 전체는 한결같이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숭고한 종교적 체험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영적 태도는 그의 사고와 느낌, 그의 믿음과 기도, 그의 가르침과 설교들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과 보장에 대한 아들의 이 개인적 신앙은 그의 독특한 일생에 영적 실체의 심오한 자질을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신성과 가까운 관계의 이 깊은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인, 하느님의 갈릴리인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바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것처럼 찬란한 자아-잊어버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주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그렇게 충분히 현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역들의 필사자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지 납득하기 시작한다.

예수는 그 영역의 사람으로서 모든 현물 중에서 가장 큰 것; 신성한 뜻을 행하는 장엄한 봉사애, 자신의 뜻을 헌납하고 봉헌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느님에게 가져다 드렸다. 예수는 언제나 일관되게 종교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지라는 의미에서 해석하였다. 주(主)의 생애를 공부할 때, 기도나 혹은 종교적 생활의 다른 면들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가르쳤나를 보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를 바라보라. 예수는 종교적 의무로서 기도를 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balanced intellectual judgments concerning the proportional values of practical and commonplace social, economic, and moral life situations. The Son of Man was a splendidly unified human personality; he was a perfectly endowed divine being; he was also magnificently co-ordinated as a combined human and divine being functioning on earth as a single personality. Always did the Master co-ordinate the faith of the soul with the wisdom-appraisals of seasoned experience. Personal faith, spiritual hope, and moral devotion were always correlated in a matchless religious unity of harmonious association with the keen realization of the reality and sacredness of all human loyalties — personal honor, family love, religious obligation, social duty, and economic necessity.

196:0.8 (2088.3) The faith of Jesus visualized all spirit values as being found in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w in the advanced and ideal fellowship of the kingdom the achievement and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The very heart of the prayer which he taught his disciples was,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aving thus conceived of the kingdom as comprising the will of God, he devoted himself to the cause of its realization with amazing self-forgetfulness and unbounded enthusiasm. But in all his intense mission and throughout his extraordinary life there never appeared the fury of the fanatic nor the superficial frothiness of the religious egotist.

196:0.9 (2088.4) The Master's entire life was consistently conditioned by this living faith, this sublime religious experience. This spiritual attitude wholly dominated his thinking and feeling, his believing and praying, his teaching and preaching. This personal faith of a son in the certainty and security of the guidance and prot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imparted to his unique life a profound endowment of spiritual reality. And yet, despite this very deep consciousness of close relationship with divinity, this Galilean, God's Galilean, when addressed as Good Teacher, instantly replied, “Why do you call me good?” When we stand confronted by such splendid self-forgetfulness, we begin to understand how the Universal Father found it possible so fully to manifest himself to him and reveal himself through him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196:0.10 (2088.5) Jesus brought to God, as a man of the realm, the greatest of all offerings: the consecration and dedication of his own will to the majestic service of doing the divine will. Jesus always and consistently interpreted religion wholly in terms of the Father's will. When you study the career of the Master, as concerns prayer or any other feature of the religious life, look not so much for what he taught as for what he did. Jesus never prayed as a religious duty. To him prayer was a

진지한 표현, 혼의 충성에 대한 선언. 개인적 헌신에 대한 낭송, 감사의 표현, 감정적 긴장의 방지, 갈등의 예방, 지능의 고양(高揚), 욕망을 고귀하게 만들, 도덕적 결정의 입증, 생각의 풍성함, 더욱 높은 성향의 활력화, 충동의 봉헌, 관점들의 명백함,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 양도, 자신감의 숭고한 단언, 용기의 계시, 발견의 선언, 최극 헌신의 고백, 봉헌의 당위성, 어려움에서의 조절기법, 그리고 이기심, 악,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 성향을 물리치려는 병합된 혼의 힘들의 힘찬 동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일생을 사셨으며, 그러한 기도와 함께 자신의 일생을 승리로 마치셨다. 그의 비교될 수 없는 종교적 일생의 비밀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의식(意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능적 기도와 진지한 경배—하느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의하여 얻었으며 인도됨이나, 음성이거나, 상상력 또는 비범한 종교적 실천 관행에 의해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지상 일생 안에서 종교는 살아있는 체험, 영적 존경으로부터 실천적인 정의를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 활동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 열매들을 맺었다. 그의 신앙은 아이들의 것과 같이 미숙하거나 경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어린이 마음의 의심하지 않는 신뢰와 비슷하였다. 예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예수는 우주에 대한 심오한 자신감을 가졌다—어린이가 자신의 부모의 환경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주의 근본적인 선에 대한 예수의 전심어린 신앙은 지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어린이의 신뢰와 매우 흡사하였다. 그는 어린아이가 그들의 땅에서의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의 열렬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에 대한 확실성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회의(懷疑)로 인하여 심각하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 불신이 그의 일생의 자유롭고 근본적인 표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는 다 자란 어른의 건강하고 지적인 용기를 믿는 아이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낙천성과 병합하였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뢰의 절정으로 자랐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이의 신뢰의 순수성을 가졌다. 그의 신앙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의심이 없어서 다른 동료 존재들과의 만남에 대한 매력과 우주의 경이로움들에 반응하였다. 신성한 것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자신하였으므로 그것은 절대적 개인적 안전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져왔다. 그는 종교적 체험에서 주저하는 변명이 없었다. 충분히-자란 사람의 이 위대한 지성에서는 어린이의 신앙이 종교적 인식에

sincere expression of spiritual attitude, a declaration of soul loyalty, a recital of personal devotion, an expression of thanksgiving, an avoidance of emotional tension, a prevention of conflict, an exaltation of intellection, an ennoblement of desire, a vindication of moral decision, an enrichment of thought, an invigoration of higher inclinations, a consecration of impulse, a clarification of viewpoint, a declaration of faith, a transcendental surrender of will, a sublime assertion of confidence, a revelation of courage, the proclamation of discovery, a confession of supreme devotion, the validation of consecration, a technique for the adjustment of difficulties, and the mighty mobilization of the combined soul powers to withstand all human tendencies toward selfishness, evil, and sin. He lived just such a life of prayerful consecra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ended his life triumphantly with just such a prayer. The secret of his unparalleled religious life was this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God; and he attained it by intelligent prayer and sincere worship — unbroken communion with God — and not by leadings, voices, visions, or extraordinary religious practices.

196:0.11 (2089.1) In the earthly life of Jesus, religion was a living experience, a direct and personal movement from spiritual reverence to practical righteousness. The faith of Jesus bore the transcendent fruits of the divine spirit. His faith was not immature and credulous like that of a child, but in many ways it did resemble the unsuspecting trust of the child mind. Jesus trusted God much as the child trusts a parent. He had a profound confidence in the universe — just such a trust as the child has in its parental environment. Jesus' wholehearted faith in the fundamental goodness of the universe very much resembled the child's trust in the security of its earthly surroundings. He depended on the heavenly Father as a child leans upon its earthly parent, and his fervent faith never for one moment doubted the certainty of the heavenly Father's overcare. He was not disturbed seriously by fears, doubts, and skepticism. Unbelief did not inhibit the free and original expression of his life. He combined the stalwart and intelligent courage of a full-grown man with the sincere and trusting optimism of a believing child. His faith grew to such heights of trust that it was devoid of fear.

196:0.12 (2089.2) The faith of Jesus attained the purity of a child's trust. His faith was so absolute and undoubting that it responded to the charm of the contact of fellow beings and to the wonders of the universe. His sense of dependence on the divine was so complete and so confident that it yielded the joy and the assurance of absolute personal security. There was no hesitating pretense in his religious experience. In this giant intellect of the full-grown man the faith of the child reigned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최극을 지배하였다. 그가 언젠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수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뜻으로도 어린아이다운 것이 아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 믿으라고, 하느님 사랑의 실체를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관계에 대한 확신의 보장을 충만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 주(主)는 모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초월적 신앙을 충분히 나누어 가지기를 바라셨다. 예수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것처럼 믿으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장 비장하게 촉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한 가지 최극 요구의 충만한 의의(意義)이다.

예수의 지상 일생은 단 한 가지의 목적—아버지의 뜻을 행함, 인간의 일생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삶—에 바쳐졌다. 예수의 신앙은 믿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이,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건하고 남자다운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실망들에 용감하게 대처하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단호히 극복하였으며, 의무의 엄격한 요구들에 망설임 없이 직면하였다. 예수가 믿었던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믿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끊임 없는 자신감이 요구되었다.

supreme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t is not strange that he once said, “Except you become as a little child, you shall not enter the kingdom.” Notwithstanding that Jesus’ faith was *childlike*, it was in no sense *childish*.

196:0.13 (2089.3) Jesus does not require his disciples to believe in him but rather to believe *with* him, believe in the reality of the love of God and in full confidence accept the security of the assurance of sonship with the heavenly Father. The Master desires that all his followers should fully share his transcendent faith. Jesus most touchingly challenged his followers, not only to believe *what* he believed, but also to believe *as* he believed. This is the full significance of his one supreme requirement, “Follow me.”

196:0.14 (2090.1) Jesus’ earthly life was devoted to one great purpose — doing the Father’s will, living the human life religiously and by faith. The faith of Jesus was trusting, like that of a child, but it was wholly free from presumption. He made robust and manly decisions, courageously faced manifold disappointments, resolutely surmounted extraordinary difficulties, and unflinchingly confronted the stern requirements of duty. It required a strong will and an unflinching confidence to believe what Jesus believed and as he believed.

제 1 장. 예수—사람

아버지의 뜻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예수의 헌신은 필사자의 결정과 인간 결심 이상이였다; 그것은 그러한 아낌없는 사랑의 증여에 전심으로 그 자신의 헌신이였다. 미가엘의 주권의 사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는 인간 예수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주(主)는 하느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그는 사람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그에 속한다. 종교가 스스로, 분투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인간 예수를 떼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에 대한 토론들이 나사렛 예수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며,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았고 행함을 성취하였다는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는 이제까지 유란시아에 살았던 최상의 참된 신앙인이였다.

19 세기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적 독단 속에 예수를 묻어놓은 무덤으로부터, 인간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부활을 증언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나사렛 예수가 영화롭게된 그리스도라는 눈부신 개념으로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시를 통하여, 사람의 아들이 전통적 신학의 무덤으로부터 회복되어야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교회와 다른 모든 종교에게 살아 계신 예수로서 제시된다면 얼마나 초월적인 봉사일 것인가! 그리스도 신자 교인들의 형제관계는, 주(主)를 “뒤 따

1. JESUS — THE MAN

196:1.1 (2090.2) Jesus’ devotion to the Father’s will and the service of man was even more than mortal decision and human determination; it was a wholehearted consecration of himself to such an unreserved bestowal of love. No matter how great the fact of the sovereignty of Michael, you must not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men. The Master has ascended on high as a man, as well as God; he belongs to men; men belong to him. How unfortunate that religion itself should be so misinterpreted as to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struggling mortals! Let not the discussions of the humanity or the divinity of the Christ obscure the saving truth that Jesus of Nazareth was a religious man who, by faith, achieved the knowing and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he was the most truly religious man who has ever lived on Urantia.

196:1.2 (2090.3) The time is ripe to witness the figurative resurrection of the human Jesus from his burial tomb amidst the theological traditions and the religious dogmas of nineteen centuries. Jesus of Nazareth must not be longer sacrificed to even the splendid concept of the glorified Christ. What a transcendent service if, through this revelation, the Son of Man should be recovered from the tomb of traditional theology and be presented as the living Jesus to the church that

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사심-없는 봉사에 몸을 바친 종교적 헌신이라는 그의 실제 삶의 실현 안에서 그를 따라 신앙에서의 그리고 삶의 실천에서 주저 없이 그러한 조절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칭 그리스도교인들이, 사회적 체면과 이기적인 경제적 불균형에서의 자아-풍족과 그리고 성스럽지 못한 동료관계의 폭로를 두려워하는가? 만약 갈릴리의 예수가 개인적인 종교적 삶의 이상(理想)으로써 필사 사람들의 마음과 혼 속에 본래의 자리를 잡았을 때,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 성직 권위의 위협성, 아니 심지어 전복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 하는가? 만약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종교를 갑자기 대체한다면, 그리스도교 문명에서의 사회적인 재조절, 경제적 변환, 도덕적 원기의 회복, 그리고 종교적 교정은 정말로 극적이고도 혁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신앙을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사람을 위하여 사심-없이 봉사한 주(主)의 일생의 영(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수가 믿었던 것을 찾아내고, 그의 이상들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의 드높여진 일생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의 종교적 일생과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평민들은 예수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진리들이 다시 세상에 선포된다면, 성화(聖化)된 종교적 동기를 지닌 그의 진지한 인간 일생의 발표에 그들은 다시 한 번 응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는 것은 그가 그들 중의 하나, 겸손한 보통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教師)는 진실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겉으로 나타난 육신으로 예수의 일생을 모방하는 것이 왕국을 믿는 자들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가 사람들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믿는 것; 바로 그러한 그의 신앙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하여나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하여 논쟁한 적이 없었다; 그는 전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예증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오한 실증이었다.

사람들이 인간의 의식(意識)으로부터 신성한 것의 실현으로 진보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또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하느님 본성의 의식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主)는 그의 필사 지성의 신앙과 내재하는 조절자의 활동들의 공동 성취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의 이 위대한 상승을 이루셨다. 신성의 전체성을 달성한 사실- 실현화는 (이 기간 내내 인간성의 실체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성화되는 신앙의 의식의 일곱 단계들을 따랐다. 이러한 점진적인 자아-실현

bears his name, and to all other religions! Surely the Christian fellowship of believers will not hesitate to make such adjustments of faith and of practices of living as will enable it to “follow after” the Master in the demonstration of his real life of religious devo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of consecra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man. Do professed Christians fear the exposure of a self-sufficient and unconsecrated fellowship of social respectability and selfish economic maladjustment? Does institutional Christianity fear the possible jeopardy, or even the overthrow, of traditional ecclesiastical authority if the Jesus of Galilee is reinstated in the minds and souls of mortal men as the ideal of personal religious living? Indeed, the social readjustments, the economic transformations, the moral rejuvenations, and the religious revisions of Christian civilization would be drastic and revolutionary if the living religion of Jesus should suddenly supplant the theologic religion about Jesus.

196:1.3 (2090.4) To “follow Jesus” means to personally share his religious faith and to enter into the spirit of the Master’s life of unselfish service for ma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human living is to find out what Jesus believed, to discover his ideals, and to strive for the achievement of his exalted life purpose. Of all human knowledge, that which is of greatest value is to know the religious life of Jesus and how he lived it.

196:1.4 (2090.5) The common people heard Jesus gladly, and they will again respond to the presentation of his sincere human life of consecrated religious motivation if such truths shall again be proclaimed to the world. The people heard him gladly because he was one of them, an unpretentious layman; the world’s greatest religious teacher was indeed a layman.

196:1.5 (2091.1) It should not be the aim of kingdom believers literally to imitate the outward life of Jesus in the flesh but rather to share his faith; to trust God as he trusted God and to believe in men as he believed in men. Jesus never argued about either the fatherhood of God or the brotherhood of men; he was a living illustration of the one and a profound demonstration of the other.

196:1.6 (2091.2) Just as men must progres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human to the realization of the divine, so did Jesus ascend from the nature of man to the consciousness of the nature of God. And the Master made this great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by the conjoint achievement of the faith of his mortal intellect and the acts of his indwelling Adjuster. The fact-realization of the attainment of totality of divinity (all the while fully conscious of the reality of humanity) was attended

의 단계들은 주(主)의 증여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로 구별 지어 졌다:

1. 생각 조절자의 도착.
2.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의 메신저.
3. 그의 세례에 부수된 현시활동들.
4. 변화 산에서의 체험들.
5. 모론시아 부활.
6. 영의 상승.
7. 그의 우주의 무제한적 주권을 수여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최종 포용.

by seven stages of faith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divinization. These stages of progressive self-realization were marked off by the following extraordinary events in the Master's bestowal experience:

- 196:1.7 (2091.3) 1. The arrival of the Thought Adjuster.
- 196:1.8 (2091.4) 2. The messenger of Immanuel who appeared to him at Jerusalem when he was about twelve years old.
- 196:1.9 (2091.5) 3. The manifestations attendant upon his baptism.
- 196:1.10 (2091.6) 4. The experience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 196:1.11 (2091.7) 5. The morontia resurrection.
- 196:1.12 (2091.8) 6. The spirit ascension.
- 196:1.13 (2091.9) 7. The final embrace of the Paradise Father, conferring unlimit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제 2 장. 예수 of 종교

언젠가는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우리들 신앙의 저자(著者)이며 완결자인, 예수의 섞이지 않은 종교적 가르침들로 돌아가려는 개혁이 충분히 깊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예수에 대한 종교를 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예수의 종교를 살아야만 한다. 오순절의 열광 속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종교, 부활하고 그리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종교를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 새로운 복음을 그리스도교, 그 자신의 신학적 견해들을 체현하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개인적 체험을 묘사한 종교로 변환시켰다. 왕국 복음은 갈릴리 예수의 개인적 종교 체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거의 오로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종교 체험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약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의미심장하고 영감을 주는 예수의 종교적 일생에 대한 묘사보다는, 바울의 종교적 체험에 대한 토론과 그의 종교적 신념들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져 있다. 이 진술에 오직 두드러진 예외들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이다. 베드로마저도 그의 글 속에서 단지 한번 그의 주(主)의 개인적인 종교적 일생에 눈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신약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교 사람들의 문서이지만, 예수다운 사람이라 하기에는 빈약할 따름이다.

육신으로서의 예수의 일생은 원시적 경외와 인간적 존경의 초기 관념에서부터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시기들을 통과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아버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의 발전되고 고양된 지위에 도달하기까지의 초월적인 종교적 성장을 묘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는 한 번의 짧은 일

2. THE RELIGION OF JESUS

196:2.1 (2091.10) Some day a reformation in the Christian church may strike deep enough to get back to the unadulterated religious teachings of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You may *preach* a religion *about* Jesus, but, perforce, you must *live* the religion *of* Jesus. In the enthusiasm of Pentecost, Peter unintentionally inaugurated a new religion, the religion of the risen and glorified Christ. The Apostle Paul later on transformed this new gospel into Christianity, a religion embodying his own theologic views and portraying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Jesus of the Damascus road.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founded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Jesus of Galilee; Christianity is founded almost exclusively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Apostle Paul. Almost the whole of the New Testament is devoted, not to the portrayal of the significant and inspiring religious life of Jesus, but to a discussion of Paul's religious experience and to a portrayal of his personal religious convictions. The only notable exceptions to this statement, aside from certain parts of Matthew, Mark, and Luke, are the Book of Hebrews and the Epistle of James. Even Peter, in his writing, only once reverted to the personal religious life of his Master. The New Testament is a superb Christian document, but it is only meagerly Jesusonian.

196:2.2 (2091.11) Jesus' life in the flesh portrays a transcendent religious growth from the early ideas of primitive awe and human reverence up through years of personal spiritual communion until he finally arrived at that advanced and exalted status of the consciousness of his oneness with the

생동안에, 사람이 지상에서 시작하여 파라다이스 이전 삶의 연속적인 단계들의 영 훈련 학교들에서 그의 오랜 체제를 마친 후에만 일반적으로 성취하는, 종교적 영적 진보의 체험을 가로질렀다. 예수는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 대한 신앙 확신들의 순수한 인간 의식으로부터 그의 신성한 본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숭고한 영적 절정에까지, 그리고 우주 경영에 대한 우주 아버지와의 긴밀한 연관 의식까지 진보하였다. 그는 그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저절로 그가 즉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니라”라고 말하도록 한 그러한 필사자로서 의존하는 겸손한 지위로부터, “너희 중의 누가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도록 그를 인도한 성취된 신성의 그 숭고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였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것까지의 이 진보하는 상승은 전적으로 필사자 성취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신성을 이루었을 때, 그는 아직 동일한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 이었다.

마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장엄한 투쟁에 임하고 있었을 때의 인간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신성의 충만한 의식으로 지상을 거닐었던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主)의 일생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지른 큰 오류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전반적으로 인간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오로지 신성으로만 생각하였다. 그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그는 진실로 인간인 동시에 신성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지신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예수가 (그리스도) 하룻밤 사이에 종교로 되어버린 것이다. 바울의 그리스도교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숭배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개인적 종교 신앙의 용기와 그의 내재하는 조절자의 영웅적 자질로, 인간성의 낮은 차원들에서부터 신성과 하나가 되기까지 상승하였으며, 그리하여 모든 필사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인간성으로부터 신성으로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갈릴리의 투쟁하는 용감한 인간 예수를 거의 잃어버렸다. 영성(靈性)의 모든 단계들과 온 세상에 있는 필사자들은 예수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그들이 가장 낮은 영 차원들에서 가장 높은 신성한 가치들까지, 모든 개인적인 종교 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보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신앙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저자들은 부활한 예수의 신성을 가장 깊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왕국을 절정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의 즉각적인 땅으로의 재림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강한 신앙은 주(主)의 순전한 인간 체험들과 속

Father. And thus, in one short life, did Jesus traverse that experience of religious spiritual progression which man begins on earth and ordinarily achieves only at the conclusion of his long sojourn in the spirit training schools of the successive levels of the pre-Paradise career. Jesus progressed from a purely human consciousness of the faith certainties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to the sublime spiritual heights of the positive realization of his divine nature and to the consciousness of his close association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the management of a universe. He progressed from the humble status of mortal dependence which prompted him spontaneously to say to the one who called him Good Teacher, “Why do you call me good? None is good but God,” to that sublime consciousness of achieved divinity which led him to exclaim, “Which one of you convicts me of sin?” And this progressing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was an exclusively mortal achievement. And when he had thus attained divinity, he was still the same human Jesus, the Son of Man as well as the Son of God.

196:2.3 (2092.1) Mark, Matthew, and Luke retain something of the picture of the human Jesus as he engaged in the superb struggle to ascertain the divine will and to do that will. John presents a picture of the triumphant Jesus as he walked on earth in the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The great mistake that has been made by those who have studied the Master's life is that some have conceived of him as entirely human, while others have thought of him as only divine. Throughout his entire experience he was truly both human and divine, even as he yet is.

196:2.4 (2092.2) But the greatest mistake was made in that, while the human Jesus was recognized as *having* a religion, the divine Jesus (Christ) almost overnight became a religion. Paul's Christianity made sure of the adoration of the divine Christ, but it almost wholly lost sight of the struggling and valiant human Jesus of Galilee, who, by the valor of his personal religious faith and the heroism of his indwelling Adjuster, ascended from the lowly levels of humanity to become one with divinity, thus becoming the new and living way whereby all mortals may so ascend from humanity to divinity. Mortals in all stages of spirituality and on all worlds may find in the personal life of Jesus that which will strengthen and inspire them as they progress from the lowest spirit levels up to the highest divine valu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ll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196:2.5 (2092.3)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the authors not only most profoundly believed in the divinity of the risen Christ, but they also devotedly and sincerely believed in his immediate return to earth to consummate the heavenly kingdom. This strong faith in the Lord's

성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에서 생략하려는 추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그리스도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와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영광되고 그리고 곧-재림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로 향하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신분에 봉사하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바울은 영광된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형제신분은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의 증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은 그의 신성의-인간의 일생 속에 잠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지상의 일생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묶여있고 최초의 왕국 복음에 영광스럽게 밝혀져 있었음으로 주(主)의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두개의 본성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추종자들이 통합된 종교의 창조에 실패한 것은 정말 슬프다.

너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헌신적인 종교가였다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너희는 그의 일부 강한 표현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정화(淨化)된 필사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남김없이 봉헌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명백한 강한 말씀들 중 많은 것들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명령보다 신앙의 개인적 고백과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러한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과 사심-없는 헌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짧은 일생에 인간 마음을 정복하고 그토록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의 선언들의 많은 것들은 그가 모든 그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그 자신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고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국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의 헌신에서, 예수는 그가 건너온 모든 다리들을 불태웠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희생시켰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다; 부자들은 대개 방종하고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신앙심 없는 가난뱅이를 똑같이 비난하였을 것이고 헌신적인 신앙심 깊은 부자를 칭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도하였다; 미신적인 금기에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으며,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었다. 그는 지상의 일생으로부터의 도피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육신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행하는 기법을 터득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현실 세계 한 복판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성취하였다. 예수는 바울이 지닌 인간에 대한 비관론적 견해를 갖지 않았다. 주(主)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았고, 생존을 선택한 그들 앞에 펼쳐질 장엄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

immediate return had much to do with the tendency to omit from the record those references which portrayed the purely human experiences and attributes of the Master. The whole Christian movement tended away from the human picture of Jesus of Nazareth toward the exaltation of the risen Christ, the glorified and soon-returning Lord Jesus Christ.

196:2.6 (2092.4) Jesus founded the religion of personal experience in doing the will of God and serving the human brotherhood; Paul founded a religion in which the glorified Jesus became the object of worship and the brotherhood consisted of fellow believers in the divine Christ. In the bestowal of Jesus these two concepts were potential in his divine-human life, and it is indeed a pity that his followers failed to create a unified religion which might have given proper recognition to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natures of the Master as they were inseparably bound up in his earth life and so gloriously set forth in the original gospel of the kingdom.

196:2.7 (2093.1) You would be neither shocked nor disturbed by some of Jesus' strong pronouncements if you would only remember that he was the world's most wholehearted and devoted religionist. He was a wholly consecrated mortal, unreservedly dedicated to doing his Father's will. Many of his apparently hard sayings were more of a personal confession of faith and a pledge of devotion than commands to his followers. And it was this very singleness of purpose and unselfish devotion that enabled him to effect such extraordinary progress in the conquest of the human mind in one short life. Many of his declar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fession of what he demanded of himself rather than what he required of all his followers. In his devotion to the cause of the kingdom, Jesus burned all bridges behind him; he sacrificed all hindrances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196:2.8 (2093.2) Jesus blessed the poor because they were usually sincere and pious; he condemned the rich because they were usually wanton and irreligious. He would equally condemn the irreligious pauper and commend the consecrated and worshipful man of wealth.

196:2.9 (2093.3) Jesus led men to feel at home in the world; he delivered them from the slavery of taboo and taught them that the world was not fundamentally evil. He did not long to escape from his earthly life; he mastered a technique of acceptably doing the Father's will while in the flesh. He attained an idealistic religious life in the very midst of a realistic world. Jesus did not share Paul's pessimistic view of humankind. The Master looked upon men as the sons of God and foresaw a magnificent and eternal future for those who chose survival. He was not a moral skeptic; he

보셨다. 그는 도덕적으로 회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악하기보다는 약하다고 보았으며, 타락하기보다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며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그들 자신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정한 이 높은 평가 때문에, 인간을 위한 끊임없는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려고 하였다. 유한 존재에 대한 이 무한한 가치가 그의 종교에서 생명 요소인 황금률을 만들었다. 어떤 필사자가 예수가 가진 그에게 대한 특별한 신앙에 의해 높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는 사회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종교는 전적으로 개별적인 체험이다. 사회의 가장 진보된 성취의 궁극적 목표도 하나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사람들과 예수의 형제신분을 초월하기를 바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달성에 대한 이상(理想)은 이 신성한 왕국의 도래에 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제 3 장. 종교의 최극위

개인적, 영적 종교 체험은 대부분의 필사자의 어려움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문제들의 효과적인 분류자, 평가자, 그리고 조절자이다. 종교는 인간의 근심들을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을 용해하고, 흡수하고, 밝혀주고, 그리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요구들에 효과 있게 적응하도록 개인성을 통합한다. 종교적 신념 —내재하는 신성한 현존의 적극적인 인도—은 하나님-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의 첫째 원인을 그것으로 아는 지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 첫째 원인이 그 분이며, 예수의 복음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며, 인간 구원의 개인적 하나님이라고 단언하는 혼의 적극적 선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에 다리를 놓게 한다.

우주 실체에는 꼭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사실, 관념, 그리고 관계이다. 종교적 의식은 이들 실체들을 과학, 철학, 그리고 진리로 정체화한다. 철학은 이 활동들을—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영적 실체—이성, 지혜, 그리고 신앙으로 보려는 경향을 갖곤 한다. 우리는 이 실체들을 물질, 의미, 그리고 가치로 명시하려는 습관에 있다.

실체에 대한 진보적인 이해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에 상응한다. 하나님의 발견, 실체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함은 자아-완성—자아-전체성, 자아-총체성—을 체험하는 것에 상응한다. 전체적 실체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실현, 하나님

viewed man positively, not negatively. He saw most men as weak rather than wicked, more distraught than depraved. But no matter what their status, they were all God's children and his brethren.

196:2.10 (2093.4) He taught men to place a high value upon themselves in time and in eternity. Because of this high estimate which Jesus placed upon men, he was willing to spend himself in the unremitting service of humankind. And it was this infinite worth of the finite that made the golden rule a vital factor in his religion. What mortal can fail to be uplifted by the extraordinary faith Jesus has in him?

196:2.11 (2093.5) Jesus offered no rules for social advancement; his was a religious mission, and religion is an exclusively individual experience. The ultimate goal of society's most advanced achievement can never hope to transcend Jesus' brotherhood of me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The ideal of all social attainment can be realized only in the coming of this divine kingdom.

3. THE SUPREMACY OF RELIGION

196:3.1 (2093.6) Personal, spiritual religious experience is an efficient solvent for most mortal difficulties; it is an effective sorter, evaluator, and adjuster of all human problems. Religion does not remove or destroy human troubles, but it does dissolve, absorb, illuminate, and transcend them. True religion unifies the personality for effective adjustment to all mortal requirements. Religious faith — the positive leading of the indwelling divine presence — unfailingly enables the God-knowing man to bridge that gulf existing between the intellectual logic which recognizes the Universal First Cause as *It* and those positive affirmations of the soul which aver this First Cause is *He*, the heavenly Father of Jesus' gospel, the personal God of human salvation.

196:3.2 (2094.1) There are just three elements in universal reality: fact, idea, and relation.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dentifies these realities as science, philosophy, and truth. Philosophy would be inclined to view these activities as reason, wisdom, and faith — physical reality, intellectual reality, and spiritual reality. We are in the habit of designating these realities as thing, meaning, and value.

196:3.3 (2094.2) The progressive comprehension of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approaching God. The finding of God, the consciousness of identity with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the experiencing of self-completion — self-entirety, self-totality. The

을-아는 체험의 최종이다.

인간 일생의 총만한 총합은 사람은 사실에 의해 교육되고, 지혜에 의해 고귀해지며, 종교적 신앙에 의해 구원되고-정당화된다는 말이다.

물질적인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다; 도덕적인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있다; 영적 확실성은 참된 종교적 체험의 진리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의 높은 차원들과 가치들의 신성에 상응하는 영역들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의 핵—신성한 현존의 조절자—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영 내주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증거들이 있다:

1. 인도주의적 동료관계—사랑.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자아-보호를 위하여 집단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영이 내주하는 지성만이 사심없이 이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2. 우주의 해석—지혜. 우주가 개별존재에게 친밀하다는 것을 영이-내주하는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다.

3. 일생의 영적인 평가—경배. 오직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신성한 현존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신성의 미리 맛보는 것 안에서 보다 총만한 체험을 얻으려고 한다.

인간 마음은 실제 가치들을 창조하지 않는다; 인간의 체험은 우주적 통찰력을 주지 않는다. 통찰력, 도덕적 가치들을 인식과 영적 의미들을 식별함에 대하여 인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발견하고, 인식하며, 해석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우주의 도덕적 가치들은 필사자 마음의 세 가지 기본 판단들, 혹은 선택들에 의하여 지적 소유들이 될 수 있다:

1. 자아의-판단—도덕적 선택.
2. 사회적-판단—윤리적 선택.
3. 하느님의-판단—종교적 선택.

이렇게 모든 인간 진보는 공동의 계시적 진화의 방법의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에 빠진 신성한 연인이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사심없이 그리고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석자가 마음속에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우주의 합일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평가자가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영적 의미들을

experiencing of total reality is the full realization of God, the finality of the God-knowing experience.

196:3.4 (2094.3) The full summation of human life is the knowledge that man is educated by fact, ennobled by wisdom, and saved — justified — by religious faith.

196:3.5 (2094.4) Physical certainty consists in the logic of science; moral certainty, in the wisdom of philosophy; spiritual certainty, in the truth of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196:3.6 (2094.5) The mind of man can attain high levels of spiritual insight and corresponding spheres of divinity of values because it is not wholly material. There is a spirit nucleus in the mind of man — the Adjuster of the divine presence. There are three separate evidences of this spirit indwelling of the human mind:

196:3.7 (2094.6) 1. Humanitarian fellowship — love. The purely animal mind may be gregarious for self-protection, but only the spirit-indwelt intellect is unselfishly altruistic and unconditionally loving.

196:3.8 (2094.7) 2.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 wisdom. Only the spirit-indwelt mind can comprehend that the universe is friendly to the individual.

196:3.9 (2094.8) 3. Spiritual evaluation of life — worship. Only the spirit-indwelt man can realize the divine presence and seek to attain a fuller experience in and with this foretaste of divinity.

196:3.10 (2094.9) The human mind does not create real values; human experience does not yield universe insight. Concerning insight, the recognition of moral values and the discernment of spiritual meanings, all that the human mind can do is to discover, recognize, interpret, and choose.

196:3.11 (2094.10) The moral values of the universe become intellectual possessions by the exercise of the three basic judgments, or choices, of the mortal mind:

- 196:3.12 (2094.11) 1. Self-judgment — moral choice.
- 196:3.13 (2094.12) 2. Social-judgment — ethical choice.
- 196:3.14 (2094.13) 3. God-judgment — religious choice.

196:3.15 (2094.14) Thus it appears that all human progress is effected by a technique of conjoint revelational evolution.

196:3.16 (2094.15) Unless a divine lover lived in man, he could not unselfishly and spiritually love. Unless an interpreter lived in the mind, man could not truly realize the unity of the universe. Unless an evaluator dwelt with man, he could not possibly appraise moral values and recognize spiritual

깨달을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연인은 무한한 사랑의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해석자는 우주적 합일성의 한 부분이다; 이 평가자는 신성하고 영원한 실체의 모든 절대 가치들의 중심과 근원의 자녀이다.

종교적 의미—영적 통찰력—를 갖는 도덕적 평가는 선과 악, 진리와 실수, 물질과 영, 인간과 신성한 것,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개별적 선택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존은 영적 가치 분류자—내주하는 해석자이며 통합자—에 의해 선정된 그러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일에 인간의 의지를 헌납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 개인적 종교 체험은 두 위상으로 구성된다; 인간 마음속에서의 발견과 내재하는 신성한 영에 의한 계시이다. 지나친 억지이론을 통하여 또는 공언된 종교가들의 비종교적 행위의 결과로 한 사람, 심지어 사람들의 한 세대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하느님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을 유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 안에서 진보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의 현존과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내주하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심오한 체험은 물리적 자연 과학들의 조잡한 물질주의적 방법을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너희는 영적 기쁨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너희는 사랑을 저울에 달 수 없다: 너희는 도덕적 가치들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영적 경배의 본질특성을 추정할 수도 없다.

히브리인들은 도덕적으로 절정에 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미(美)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바울과 그의 의논 상대방들은 신앙, 소망, 그리고 박애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는 사랑의 종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보호, 인간 형제신분의 봉사에 이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얻어지는 즐거움과 만족을 보여주었고 예시하였다.

사람은 사려 깊은 도덕적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그의 혼 속에 새로운 신성한 침투를 즉시 체험한다. 도덕적 선택은 종교를 외부의 조건들에 대한 내적인 반응의 동기로 형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제 종교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객관성—우주와 그 조물주—에 대한 의미 있고 그리고 지능적인 반응에 몰두되어 있는 개별존재 주관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절묘하고 초월적인 체험은, 너무 순수하게 주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 환상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진실로 신성하고 객관적인 실체, 생각 조절자는 배타적인 주관적 현상으로서 명백하게 인간 관찰에 대하여 기능하고 있다. 가장 높은 객관적 실체, 하느님과 사람의 접촉은 오직 그를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와의 아들관계를 깨닫는 순수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meanings. And this lover hails from the very source of infinite love; this interpreter is a part of Universal Unity; this evaluator is the child of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absolute values of divine and eternal reality.

196:3.17 (2095.1) Moral evaluation with a religious meaning — spiritual insight — connotes the individual's choice between good and evil, truth and error, material and spiritual, human and divine, time and eternity. Human survival is in great measure dependent on consecrating the human will to the choosing of those values selected by this spirit-value sorter — the indwelling interpreter and unifie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consists in two phases: discovery in the human mind and revelation by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hrough oversophistication or as a result of the irreligious conduct of professed religionists, a man, or even a generation of men, may elect to suspend their efforts to discover the God who indwells them; they may fail to progress in and attain the divine revelation. But such attitudes of spiritual nonprogression cannot long persist because of the presence and influence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196:3.18 (2095.2) This profound experience of the reality of the divine indwelling forever transcends the crude materialistic technique of the physical sciences. You cannot put spiritual joy under a microscope; you cannot weigh love in a balance; you cannot measure moral values; neither can you estimate the quality of spiritual worship.

196:3.19 (2095.3) The Hebrews had a religion of moral sublimity; the Greeks evolved a religion of beauty; Paul and his conferees founded a religion of faith, hope, and charity. Jesus revealed and exemplified a religion of love: security in the Father's love, with joy and satisfaction consequent upon sharing this love in the service of the human brotherhood.

196:3.20 (2095.4) Every time man makes a reflective moral choice, he immediately experiences a new divine invasion of his soul. Moral choosing constitutes religion as the motive of inner response to outer conditions. But such a real religion is not a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It signifies the whole of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engaged in a meaningful and intelligent response to total objectivity — the universe and its Maker.

196:3.21 (2095.5) The exquisite and transcendent experience of loving and being loved is not just a psychic illusion because it is so purely subjective. The one truly divine and objective reality that is associated with mortal beings, the Thought Adjuster, functions to human observation apparently as an exclusively subjective phenomenon. Man's contact with the highest objective reality, God, is only through the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of knowing him, of

진정한 종교적 경배는 자아-기만의 헛된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다. 경배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 실체의 바로 그 근원과의 개인적 교제이다. 사람은 경배로서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결국에는 최상에 이른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에 대한 이상화(理想化)와 시도되는 봉사는 순수한 종교 체험,—영적(靈的) 실체—의 대용품이 아니다. 심리학과 이상주의는 종교적 실체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인간 지성의 구체적 투사 활동들이 거짓의 하느님들—사람 형상의 하느님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참된 하느님을-의식함은 그러한 기원(起源)을 가지지 않는다. 하느님을-의식함은 내주하는 영속에 살고 있다. 사람의 종교 체계들 대부분은 인간 지능이 꾸며서 갖춘 것에서 왔다, 그러나 하느님을-의식함은 종교적 노예제도의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체계들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단순히 사람의 이상주의의 창안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이러한 초(超)동물적인 통찰력들과 가치들의 바로 그 근원이다. 하느님은 인간들의 진, 선, 미의 개념을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다; 그는 그로부터 모든 이들 우주 현시활동들이 기원된 사랑의 개인성이다. 인간 세상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은 파라다이스의 실체들을 향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체험의 증가하는 영성(靈性)에 의해 통합된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의 합일은 오로지 하느님을-아는 개인성의 영적 체험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도덕은 조절자의 내적 현존에 대한 개인적 실현인, 개인적인 하느님-의식에 꼭 필요한 선제하는 토양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은 종교적 체험과 결국 생겨나는 영적 통찰력의 근원은 아니다. 도덕의 본성은 초(超)동물적이다 그러나 영에 종속적이다. 도덕은 의무의 인식, 옳고 그른 실존에 대한 깨달음과 동등하다. 모른시아가 개인성 달성의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사이에서 작용하듯이 도덕의 범주는 동물과 인간 유형의 마음 사이에 개입한다.

진화하는 마음은 법과 도덕과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된 영, 내주하는 조절자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에게 입법자,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의 아버지-근원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러한 계몽된 사람은 종교를 가진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길고도 모험적인 추구를 시작하도록 영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도덕은 영적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전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는 모든 도덕적 가치들을 높이고 그들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든다. 종교가 없는 도덕은 궁극적 선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worshiping him, of realizing sonship with him.

196:3.22 (2095.6) True religious worship is not a futile monologue of self-deception. Worship is a personal communion with that which is divinely real, with that which is the very source of reality. Man aspires by worship to be better and thereby eventually attains the best.

196:3.23 (2095.7) The idealization and attempted service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not a substitute for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 spiritual reality. Psychology and idealism are not the equivalent of religious reality. The projections of the human intellect may indeed originate false gods — gods in man's image — but the true God-consciousness does not have such an origin. The God-consciousness is resident in the indwelling spirit. Many of the religious systems of man come from the formulations of the human intellect, but the God-consciousness is not necessarily a part of these grotesque systems of religious slavery.

196:3.24 (2095.8) God is not the mere invention of man's idealism; he is the very source of all such superanimal insights and values. God is not a hypothesis formulated to unify the human concept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he is the personality of love from whom all of these universe manifestations are derived.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man's world are unified by the increasing spirituality of the experience of mortals ascending toward Paradise realities. The uni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can only be realized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the God-knowing personality.

196:3.25 (2096.1) Morality is the essential pre-existent soil of personal God-consciousness,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Adjuster's inner presence, but such morality is not the source of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resultant spiritual insight. The moral nature is superanimal but subspiritual. Morality is equivalent to the recognition of duty, the realization of the existence of right and wrong. The moral zone intervenes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types of mind as morontia function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spheres of personality attainment.

196:3.26 (2096.2) The evolutionary mind is able to discover law, morals, and ethics; but the bestowed spirit, the indwelling Adjuster, reveals to the evolving human mind the lawgiver, the Father-source of all that is true, beautiful, and good; and such an illuminated man has a religion and is spiritually equipped to begin the long and adventurous search for God.

196:3.27 (2096.3) Morality is not necessarily spiritual; it may be wholly and purely human, albeit real religion enhances all moral values, makes them more meaningful. Morality without religion fails to reveal ultimate goodness, and it also fails to

한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들의 생존을 준비하는데도 실패한다. 종교는 도덕이 인식하고 인정한 모든 것의 향상, 찬미, 그리고 확실한 생존을 제공한다.

종교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 위에 있지만, 그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 체험 속에서 서로 확고하게 상호관계 되어있다. 종교는 필사자 본성 안에서 사람의 최극 체험이다, 그러나 유한한 언어는 신학이 실제 종교 체험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것을 언제나 지니지 못하게 한다.

종교적 통찰력은 패배를 더 높은 욕망과 새로운 결의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우주 상승 시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이다. 그러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을 벗어 버린 사랑은 단지 하나의 정서이며, 철학적 왜곡, 심리적 착각, 영적 기만이다. 사랑은 모론시아와 영적 진보의 연속되는 차원들에서 항상 다시 정의(定意)되어야 한다.

예술은 사람이 물질적 환경 속에서 미(美)의 결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론시아 차원으로 향한 몸짓이다. 과학은 물질적 우주의 명백한 수수께끼들을 풀려는 사람의 노력이다. 철학은 인간의 체험을 통일하려는 사람의 시도이다. 종교는 사람의 최극 몸짓, 최종의 실체를 향한 그의 장엄한 기지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는 그의 결심이다.

종교 체험의 영역에서는 영적 가능성이 잠재적 실체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충동은 심리적 환상이 아니다. 우주 낭만에 젖는 사람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진리이다

어떤 사람들의 삶은 단지 성공적이었다는 낮은 차원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고상하다. 동물은 그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그의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성한 사랑의 이 통찰력을 통하여 현재의 물질적 세상의 한계들을 탈출한다. 이 사랑의 개념은 사람의 혼 속에서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을 찾으려는 초(超)동물적 노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들의 포용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는 그들로 살아가려는, 정의(正義)를 행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좌절하지 말라; 인간의 진화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더 나은 교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육신에서의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신성한 현존과의 접촉—의 경계점에 도달하려는 전심의 노력으로 싹트고 있는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provide for the survival of even its own moral values. Religion provides for the enhancement, glorification, and assured survival of everything morality recognizes and approves.

196.3.28 (2096.4) Religion stands above science, art, philosophy, ethics, and morals, but not independent of them. They are all indissolubly interrelated in human experience, personal and social. Religion is man's supreme experience in the mortal nature, but finite language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ology ever adequately to depict real religious experience.

196.3.29 (2096.5) Religious insight possesses the power of turning defeat into higher desires and new determinations. Love is the highest motivation which man may utilize in his universe ascent. But love, divested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only a sentiment, a philosophic distortion, a psychic illusion, a spiritual deception. Love must always be redefined on successive levels of morontia and spirit progression.

196.3.30 (2096.6) Art results from man's attempt to escape from the lack of beauty in his material environment; it is a gesture toward the morontia level. Science is man's effort to solve the apparent riddles of the material universe. Philosophy is man's attempt at the unification of human experience. Religion is man's supreme gesture, his magnificent reach for final reality, his determination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196.3.31 (2096.7) In the realm of religious experience, spiritual possibility is potential reality. Man's forward spiritual urge is not a psychic illusion. All of man's universe romancing may not be fact, but much, very much, is truth.

196.3.32 (2096.8) Some men's lives are too great and noble to descend to the low level of being merely successful. The animal must adapt itself to the environment, but the religious man transcends his environment and in this way escape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material world through this insight of divine love. This concept of love generates in the soul of man that superanimal effort to find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when he does find them, he is glorified in their embrace; he is consumed with the desire to live them, to do righteousness.

196.3.33 (2097.1) Be not discouraged; human evolution is still in progress, and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world, in and through Jesus, shall not fail.

196.3.34 (2097.2) The great challenge to modern man is to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divine Monitor that dwells within the human mind. Man's greatest adventure in the flesh consists in the well-balanced and sane effort to advance the borders of self-consciousness out through the dim realms of embryonic soul-consciousness in a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히고 정신이 올바른 노력 속에 있다. 그러한 체험은 하느님-의식, 하느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선재하는 진리에 대해 강력하게 확인하는 체험을 구성한다. 그러한 영-의식은 하느님과 아들관계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아들관계의 확신은 신앙의 체험이다.

그리고 하느님-의식함은 자아가 우주와 함께, 그리고 영적 실체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집대성활동을 이루는 것과 동등하다. 그 어떤 가치에서도 영 내용만은 사멸될 수 없다. 인간의 체험에서도 참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것은 사멸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하는 조절자가 사랑으로 태어나고 봉사 안에서 양육된 그 실체들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주 아버지의 일부분이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랑이며, 아버지의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은 그의 아들의 아들들—필사 사람들—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완료된 지금, 아버지 관념은 여전히 하느님에 대한 가장 높은 인간의 개념이다.

wholehearted effort to reach the borderland of spirit-consciousness — contact with the divine presence. Such an experience constitutes God-consciousness, an experience mightily confirmative of the pre-existent truth of the religious experience of knowing God. Such spirit-consciousness is the equivalent of the knowledge of the actuality of sonship with God. Otherwise, the assurance of sonship is the experience of faith.

196:3.35 (2097:3)

And God-consciousness is equivalent to the integration of the self with the universe, and on its highest levels of spiritual reality. Only the spirit content of any value is imperishable. Even that which is true, beautiful, and good may not perish in human experience. If man does not choose to survive, then does the surviving Adjuster conserve those realities born of love and nurtured in service. And all these things are a par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Father is living love, and this life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And the spirit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sons — mortal men. When all is said and done, the Father idea is still the highest human concept of God.

